



유랜시아 책 / THE URANTIA BOOK

KOREAN / ENGLISH: USGNY[CM]-KOR-000-1996-6 REVISED: MAR 2022 / UF-ENG-001-1955-20.1

The Korean text of this translation of **THE URANTIA BOOK** is

Copyrighted © and Published by:



This pdf-formatted document (kor00e) was designed, created, and
freely provided as a service by the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USGNY).
www.urantia.nyc

유랜시아 책

머 리 말

머 리 말

유란시아 책

001 ⇨

머 리 말

섹션

소개

1. 신격과 신성
2. 하나님
3. 제1 근원 및 중심
4. 우주 실체
5. 인격 실체들
6. 에너지와 원형
7. 지존하신 분
8. 칠중 하나님
9. 궁극자 하나님
10. 절대자 하나님
11. 세 절대자
12. 삼위일체들

FOREWORD

SECTIONS

Introduction

- I. Deity and Divinity
- II. God
- III.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IV. Universe Reality
- V. Personality Realities
- VI. Energy and Pattern
- VII. The Supreme Being
- VIII. God the Sevenfold
- IX. God the Ultimate
- X. God the Absolute
- XI. The Three Absolutes
- XII. The Trinities

소개

너희의 세계를 가리키는 이름인--**유란시아**{또는 **우란티아**}에 사는 필사자{必死者}들의 정신은, **하나님**, 신성{神性}, 신격{神格} 등과 같은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인간은, 다수의 이 호칭이 가리키는 신성한 인격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더 많이 혼동하고 있다. 그토록 심한 관념적 혼동과 관련된 이런 개념상 빈곤 때문에,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영어**라는 언어로 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오르본톤**의 진리 계시자 단체가 여러 문서에서 앞으로 사용할, 특정한 단어 상징에 첨부돼야 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 머리말을 쓰라고 나는 지시 받았다.

우리는 그 영역의 제한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공우주{時空宇宙 cosmos}에 관한 의식을 확장시키고 영적 인식을 고양시키려고 애쓸 때, 확대된 개념과 진보된 진리를 제시하기가

INTRODUCTION

0:0.1 (1.1) IN THE MINDS of the mortals of Urantia — that being the name of your world — there exists great confusion respecting the meaning of such terms as God, divinity, and deity. Human beings are still more confused and uncertain about the relationships of the divine personalities designated by these numerous appellations. Because of this conceptual poverty associated with so much ideational confusion, I have been directed to formulate this introductory statement in explanation of the meanings which should be attached to certain word symbols as they may be hereinafter used in those papers which the Orvonton corps of truth revealers have been authorized to translate into the English language of Urantia.

0:0.2 (1.2)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present enlarged concepts and advanced truth, in our endeavor to expand cosmic consciousness and enhance spiritual perception, when we are restricted to the use of a circumscribed language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은, **영어**의 단어 상징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미를 전달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한다. 부분 적으로 또는 의미가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개념 전달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영어**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라고 우리는 지시 받았다.

이 글을 정독하게 될 모든 필사자 편에서 남득을 용이하게 하고 혼동을 방지하게 되기를 기대 하면서, **신격**, 그리고 우주에 실재하는 사물,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어떤 관련된 개념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많은 **영어** 단어에 첨부될 뜻의 윤곽을, 이 머리말에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단어의 정의 및 한계를 서술하는 이 **서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제시될 이 용어들의 용법{用法}을 미리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서문**은, 그 자체로 완결된 글이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 파송된 **오르본톤** 위원회가 서술한, **신격** 및 온갖 우주를 다루는 글을 읽게 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쓴 제한된 지침서{指針書}일 뿐이다.

너희 세계 **유란시아**는, **네바돈**이라는 지방 우주{地方宇宙}를 구성하는 유사한 많은 인간거주{人間居住} 행성 가운데 하나다. 이 **네바돈** 우주는, 다른 비슷한 창조물들과 함께, **오르본톤**이라는 연방우주{聯邦宇宙}를 구성하는데, 그 수도인 **우버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왔다. **오르본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성한 완전성의 창조물을-- 곧 **하보나**라는 중앙우주{中央宇宙}를-- 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다. 중앙에 있는 이 영원한 우주의 심장부에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움직이지 않는 **낙원 섬**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에 있는 신성한 우주와 관련해서,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를 우리는 보통 **광우주**{廣宇宙}라고 부르는데, 연방우주들은 현재 조직되고 있는,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이다. 연방우주들은 모두, 조성되는 중이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외부 공간의 우주들을 포괄하는, **총괄우주**{總括宇宙}의 일부다.

1. 신격과 신성

온갖 우주는, 시공우주 실체, 정신의 의미, 및 영적 가치의 다양한 수준에서 신격이 활동하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사역{事役}은 --개인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성하게 조화된다.

신격은 **하나님**으로서 인격화될 수 있는데,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격이전{人格以前}이고 인격을 초월한다. **신격**의 특징은,

of the realm. But our mandate admonishes us to make every effort to convey our meanings by using the word symbols of the English tongue. We have been instructed to introduce new terms only when the concept to be portrayed finds no terminology in English which can be employed to convey such a new concept partially or even with more or less distortion of meaning.

0:0.3 (1.3) In the hope of facilitating comprehension and of preventing confusion on the part of every mortal who may peruse these papers, we deem it wise to present in this initial statement an outline of the meanings to be attached to numerous English words which are to be employed in designation of Deity and certain associated concepts of the things, meanings, and values of universal reality.

0:0.4 (1.4) But in order to formulate this Foreword of definitions and limitations of terminology,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usage of these terms in the subsequent presentations. This Foreword is not, therefore, a finished statement within itself; it is only a definitive guide designed to assist those who shall read the accompanying papers dealing with Deity and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ch have been formulated by an Orvonton commission sent to Urantia for this purpose.

0:0.5 (1.5) Your world, Urantia, is one of many similar inhabited planets which comprise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is universe, together with similar creations, makes up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from whose capital, Uversa, our commission hails. Orvonton is one of the seven evolutionary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ich circle the never-beginning, never-ending creation of divine perfection —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At the heart of this eternal and central universe is the stationary Isle of Paradise, the geographic center of infinity and the dwelling place of the eternal God.

0:0.6 (1.6) The seven evolving superuniverses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we commonly refer to as the *grand universe*; these are the now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They are all a part of the *master universe*, which also embraces the uninhabited but mobil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I. DEITY AND DIVINITY

0:1.1 (2.1) The universe of universes presents phenomena of deity activities on diverse levels of cosmic realities, mind meanings, and spirit values, but all of these ministrations — personal or otherwise — are divinely co-ordinated.

0:1.2 (2.2) DEITY is personalizable as God, is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in ways not altogether comprehensible by man. Deity is

실체의 모든 초물질적 수준에서 --실제적으로든지 잠재적으로든지-- 통일된 속성을 가졌으며; 피조물은, 통합하는 이 속성이 신성{神性}이라고 가장 쉽게 납득한다.

신격은, 인격있는 수준, 인격이전 수준, 그리고 인격을 초월한 수준에서 활동한다. 총체적 **신격**은 다음과 같은 일곱 수준에서 활동한다:

1. 정적{靜的} --독립적이고 스스로_실존하는 **신격**.

2. 잠재적{潛在的} --스스로_뜻을_세우고 스스로_의도하는 **신격**.

3. 연합적{聯合的} --스스로_인격화되고 신성하게 우에 깊은 **신격**.

4. 창조적{創造的} --자신을_분배하고 신성하게 계시된 **신격**.

5. 진화적{進化的} --스스로_확장하고 피조물과_일치되는 **신격**.

6. 지존적{至尊的} --스스로_체험하고 피조물과_창조주를_통합하는 **신격**. 광우주의 시{時}_공간{空間} 전면통제관으로서 피조물과_일체화되는 첫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격**인데, **신격 지존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7. 궁극적{窮極的} --자신을_입안{立案}하고 시_공간을_초월하는 **신격**. 전능하고, 전지{全知}하며, 편재하는 **신격**. 총괄우주의 효율적 전면통제관 및 유한절대 유지자로서 신성의 표현을 통합하는, 둘째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격**. 광우주에 대한 **신격**들의 사역과 비교할 때, 총괄우주에서 이 유한절대 활동은 우주의 전면통제 및 초월적 지원에 해당하는데, 때로는 **궁극 신격**이라고 불린다.

실체의 유한 수준의 특징은, 피조 생명과 시_공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유한한 실체들은 끝이 없을 수 있으나, 시작은 반드시 있다--그들은 창조된다. **지존**이라는 **신격** 수준은, 유한한 실체들과 관련되는 기능이라고 봐도 좋다.

실체의 유한절대 수준의 특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물과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유한절대자들은 창조되지 않으며; 생겨난다--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궁극**이라는 **신격** 수준은, 유한절대 실체들과 관련된 활동을 내포한다. 총괄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마다, 그러한 유한절대 현상은 **궁극 신격**의 행동이다.

절대 수준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다. 예를 들면: **낙원**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낙원**의 시_공간 상태는 절대적이다. 이 수준은, 실존적으로, **낙원 신격**들이 달성한 **삼위일체**이지만, **신격** 표현을 통합하는 이

characterized by the quality of unity — actual or potential — on all supermaterial levels of reality; and this unifying quality is best comprehended by creatures as divinity.

0:1.3 (2:3) Deity functions on personal,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levels. Total Deity is functional on the following seven levels:

0:1.4 (2:4) 1. *Static* — self-contained and self-existent Deity.

0:1.5 (2:5) 2. *Potential* — self-willed and self-purposive Deity.

0:1.6 (2:6) 3. *Associative* — self-personalized and divinely fraternal Deity.

0:1.7 (2:7) 4. *Creative* — self-distributive and divinely revealed Deity.

0:1.8 (2:8) 5. *Evolutional* — self-expansive and creature-identified Deity.

0:1.9 (2:9) 6. *Supreme* — self-experiential and creature-Creator-unifying Deity. Deity functioning on the first creature-identificational level as time-space over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sometimes designated the Supremacy of Deity.

0:1.10 (2:10) 7. *Ultimate* — self-projected and time-space-transcending Deity. Deity omnipotent, omniscient, and omnipresent. Deity functioning on the second level of unifying divinity expression as effective overcontrollers and absonite upholders of the master universe. As compared with the ministry of the Deities to the grand universe, this absonite function in the master universe is tantamount to universal overcontrol and supersustenance, sometimes called the Ultimacy of Deity.

0:1.11 (2:11) *The finite level* of reality is characterized by creature life and time-space limitations. Finite realities may not have endings, but they always have beginnings — they are created. The Deity level of Supremacy may be conceived as a function in relation to finite existences.

0:1.12 (2:12) *The absonite level* of reality is characterized by things and beings without beginnings or endings and by the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Absonites are not created; they are eventuated — they simply are. The Deity level of Ultimacy connotes a function in relation to absonite realities. No matter in what part of the master universe, whenever time and space are transcended, such an absonite phenomenon is an act of the Ultimacy of Deity.

0:1.13 (2:13) *The absolute level* is beginningless, endless, timeless, and spaceless. For example: On Paradise, time and space are nonexistent; the time-space status of Paradise is absolute. This level is Trinity attained, existentially, by the Paradise Deities, but this third level of unifying

셋째 수준은 체험적으로 완전히 통합돼 있지 않다. **신격**의 절대 수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든지, **낙원**의 절대 가치와 의미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신격은, **영원한 아들**의 경우처럼 실존적일 수 있으며; **지존하신 분**의 경우처럼 체험적일 수 있으며; **칠중 하나님**의 경우처럼 연합적일 수 있으며; **낙원 삼위일체**의 경우처럼 나뉘지 않을 수 있다.

신격은 신성한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격**은 신{神}다운 특색이 있고 변함없이 신성하지만,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반드시 **신격**은 아니며, 그렇더라도, 신성한 것은 **신격**과 조화돼 있고 **신격**과 통일되는 --영적, 정신적, 또는 인격적인-- 어떤 국면을 지향할 것이다.

신성{神性}은 **신격**의 특색을 이루는, 통합하고 조정하는 성질이다.

신성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으로서 피조물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인격 속에서는, 사랑, 자비, 및 보살핌과 서로 관련되며; 인격아닌 수준에서는, 공의, 권능, 및 주권으로 나타난다.

신성은, **낙원** 완전성의 실존적 수준과 창조자 수준에서처럼, 완전할--즉 완벽할-- 수 있으며; 시공간 진화의 체험 및 피조 수준에서처럼, 불완전할 수 있으며; 또는 실존적_체험적 관계들을 갖는 어떤 **하보나** 수준에서처럼, 상대적{相對的}일 수 있는데,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상대성{相對性}의 모든 국면과 형태에서 완전성을 인식하려고 할 때, 일곱 가지의 인식 가능한 유형을 접하게 된다:

1. 모든 양상에서 절대로 완전함.
2. 몇몇 국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모든 다른 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함.
3. 다양한 연합체 속에서,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며 불완전한 양상들.
4. 어떤 측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기타 모든 측면에서는 불완전함.
5. 어떤 방향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형태화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함.
6. 어떤 국면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면에서는 불완전함.
7. 어떤 속성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불완전함.

2. 하나님

진화하는 필사{必死}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개념을 상징화하려는, 어쩔 수 없는 충

Deity expression is not fully unified experientially. Whenever, wherever, and however the absolute level of Deity functions, Paradise-absolute values and meanings are manifest.

0:1.14 (3.1) Deity may be existential, as in the Eternal Son; experiential, as in the Supreme Being; associative, as in God the Sevenfold; undivided, as in the Paradise Trinity.

0:1.15 (3.2) Deity is the source of all that which is divine. Deity is characteristically and invariably divine, but all that which is divine is not necessarily Deity, though it will be co-ordinated with Deity and will tend towards some phase of unity with Deity — spiritual, mindal, or personal.

0:1.16 (3.3) DIVINITY is the characteristic, unifying, and co-ordinating quality of Deity.

0:1.17 (3.4) Divinity is creature comprehensible as truth, beauty, and goodness; correlated in personality as love, mercy, and ministry; disclosed on impersonal levels as justice, power, and sovereignty.

0:1.18 (3.5) Divinity may be perfect — complete — as on existential and creator levels of Paradise perfection; it may be imperfect, as on experiential and creature levels of time-space evolution; or it may be relative, neither perfect nor imperfect, as on certain Havona levels of existential-experiential relationships.

0:1.19 (3.6) When we attempt to conceive of perfection in all phases and forms of relativity, we encounter seven conceivable types:

0:1.20 (3.7) 1. Absolute perfection in all aspects.

0:1.21 (3.8) 2. Absolute perfection in some phases and relative perfection in all other aspects.

0:1.22 (3.9) 3. Absolute, relative, and imperfect aspects in varied association.

0:1.23 (3.10) 4. Absolute perfection in some respects, imperfection in all others.

0:1.24 (3.11) 5. Absolute perfection in no direction, relative perfection in all manifestations.

0:1.25 (3.12) 6. Absolute perfection in no phase, relative in some, imperfect in others.

0:1.26 (3.13) 7. Absolute perfection in no attribute, imperfection in all.

II. GOD

0:2.1 (3.14) Evolving mortal creatures experience an irresistible urge to symbolize their finite concepts

동을 체험한다. 사람의 도덕적 의무 의식(意識)과 영적 관념론은, 어떤 가치 수준을--곧 체험적 실체를-- 대표하는데, 이것은 상징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시공우주를 의식한다는 것은, **제1 인격**, 즉 원인이 없는 유일무이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유(萬有)의 아버지**, 즉 **하나님**은, 무한 이하의 가치와 상대적 신성을 표현하는 세 가지 **신격**_인격 수준에서 활동한다:

1. **인격이전 수준** --**사고 조율사**(調律使)처럼, **아버지**의 단편(斷片)이 사역하는 경우.

2. **인격있는 수준** --창조된 존재와 생성된 존재가 겪는 진화적 체험의 경우.

3. **인격을 초월한 수준** --어떤 유한절대 존재 및 그에 관련된 존재들이 결말에 이른 실존의 경우.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격**의 인격화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 상징이다. 이 용어는, **신격**이 활동하는 각각의 인격있는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 내려져야 하고, 이런 각 수준에서도 더 자세히 다시 규명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낙원 창조주 아들들**에서--곧 지방우주의 아버지들에서-- 보다시피, **신격**의 다양한 등급 및 종속된 인격화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정황에 따라 --어떤 하나의 신격 수준 또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그 단어를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인격'을 가리킨다. **신격**이라는 용어는, 신성 인격체들을 가리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문서들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통제관, 및 유지자**. **만유의 아버지, 신격의 제1 인격자**.

2. **아들 하나님** --**동격 창조주, 영 통제관, 및 영적 경영자. 영원한 아들, 신격의 제2 인격자**.

3. **영 하나님** --**공동 행위자, 우주적 통합자, 및 정신 증여자. 무한한 영, 신격의 제3 인격자**.

4. **지존자(至尊者) 하나님** --실체화 하거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가 일치됨을 시_공간에서 체험으로 성취하는, 인격있는 **신격**.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서

of God. Man's consciousness of moral duty and his spiritual idealism represent a value level — an experiential reality — which is difficult of symbolization.

0:22 (3.15) Cosmic consciousness implies the recognition of a First Cause, the one and only uncaused reality. God, the Universal Father, functions on three Deity-personality levels of subinfinite value and relative divinity expression:

0:23 (3.16) 1. *Prepersonal* — as in the ministry of the Father fragments, such as the Thought Adjusters.

0:24 (3.17) 2. *Personal* — as in the evolutionary experience of created and procreated beings.

0:25 (3.18) 3. *Superpersonal* — as in the eventuated existences of certain absonite and associated beings.

0:26 (3.19) GOD is a word symbol designating all personalizations of Deity. The term requires a different definition on each personal level of Deity function and must be still further redefined within each of these levels, as this term may be used to designate the diverse co-ordinate and subordinate personalizations of Deity; for example: the Paradise Creator Sons — the local universe fathers.

0:27 (4.1) The term God, as we make use of it, may be understood:

0:28 (4.2) *By designation* — as God the Father.

0:29 (4.3) *By context* — as when used in the discussion of some one deity level or association. When in doubt as to the exact interpretation of the word God, it would be advisable to refer it to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0:210 (4.4) The term God always denotes *personality*. Deity may, or may not, refer to divinity personalities.

0:211 (4.5) The word GOD is used, in these papers, with the following meanings:

0:212 (4.6) 1. *God the Father* — Creator, Controller, and Upholder. The Universal Father, the First Person of Deity.

0:213 (4.7) 2. *God the Son* — Co-ordinate Creator, Spirit Controller, and Spiritual Administrator. The Eternal Son, the Second Person of Deity.

0:214 (4.8) 3. *God the Spirit* — Conjoint Actor, Universal Integrator, and Mind Bestower.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0:215 (4.9) 4. *God the Supreme* — the actualizing or evolving God of time and space. Personal Deity associatively realizing the time-space experiential achievement of creature-Creator identity. The Supreme Being is personally experiencing the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진화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서, **신격**의 통일을 성취하는 체험을 몸소 겪고 있다.

5. **칠중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서 어디서든지 실제로 활동하는 **신격** 인격체. 중앙우주의 테두리 안과 바깥에서 활동하며, 시간과 공간에서 통합하는 **신격**을 드러내는 첫째 피조물 수준에서,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으로_인격화하는, 인격있는 **낙원 신격**들 및 그들의 창조 동역자들. 이 수준, 즉 광우주는, 진화하는 피조물이 시_공간에서 상승{上昇}하는 것과 반대 관계로, **낙원** 인격체들이 시_공간에서 하강{下降}하는 영역이다.

6. **궁극자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결말에 이르는 **하나님. 신격** 현시{顯示}를 통합하는, 둘째 체험적 수준. **궁극자 하나님**은, 유한절대이고_인격을_초월하는 가치, 시_공간을_초월하는 가치, 결말에 이르는_체험적 가치의 통합을 실현하고, 이것이 **신격** 실체의 최종적인 창조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 것을 암시한다.

7. **절대자 하나님** --인격을 초월한 탁월한 가치와 신성의 의미를 체험으로 만드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신격 절대자**로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통합하는 **신격**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셋째 수준이다. 창조를_초월하는 이 수준에서, **신격**은 인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의 고갈을 체험하고, 완성된 신성에 부딪치며, 연속되어 진보하는, 달리_인격화하는 수준까지 스스로를_계시할 수 있는 능력의 고갈을 체험한다. 이제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 절대자**를 만나고, 그와 부딪치고, 그와 일치됨을 체험한다.

3. 제1 근원 및 중심

총 실체, 즉 무한한 실체는, 일곱 국면에서, 그리고 대등한 일곱 **절대자**로서 존재한다.

1. 제1 근원 및 중심.
2. 제2 근원 및 중심.
3. 제3 근원 및 중심.
4. 낙원 섬.
5. 신격 절대자.
6. 우주 절대자.
7. 무조건 절대자.

하나님은 제1 근원 및 중심으로서, 총 실체와 갖는 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며, 따라서 오직 의지작용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여된다.

하나님은--곧 만유의 아버지는-- 제1 근원 및

achievement of Deity unity as the evolving and experiential God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ime and space.

0:2.16 (4.10) 5. *God the Sevenfold* — Deity personality anywhere actually functioning in time and space. The personal Paradise Deities and their creative associates functioning in and beyond the border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power-personalizing as the Supreme Being on the first creature level of unifying Deity revelation in time and space. This level, the grand universe, is the sphere of the time-space descension of Paradise personalities in reciprocal association with the time-space ascension of evolutionary creatures.

0:2.17 (4.11) 6. *God the Ultimate* — the eventuating God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The second experiential level of unifying Deity manifestation. God the Ultimate implies the attained realization of the synthesized absonite-superpersonal, time-space-transcended, and eventuated-experiential values, co-ordinated on final creative levels of Deity reality.

0:2.18 (4.12) 7. *God the Absolute* — the experientializing God of transcended superpersonal values and divinity meanings, now existential as the *Deity Absolute*. This is the third level of unifying Deity expression and expansion. On this supercreative level, Deity experiences exhaustion of personalizable potential, encounters completion of divinity, and undergoes depletion of capacity for self-revelation to successive and progressive levels of other-personalization. Deity now encounters, impinges upon, and experiences identity with, the *Unqualified Absolute*.

III. THE FIRST SOURCE AND CENTER

0:3.1 (4.13) Total, infinite reality is existential in seven phases and as seven co-ordinate Absolutes:

0:3.2 (5.1) 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0:3.3 (5.2) 2.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0:3.4 (5.3) 3. The Third Source and Center.

0:3.5 (5.4) 4. The Isle of Paradise.

0:3.6 (5.5) 5. The Deity Absolute.

0:3.7 (5.6) 6. The Universal Absolute.

0:3.8 (5.7) 7. The Unqualified Absolute.

0:3.9 (5.8) God, a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rimal in relation to total reality — unqualifiedl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as well as eternal and is therefore limited or conditioned only by volition.

0:3.10 (5.9) God — the Universal Father — is the

중심의 인격이며, 그런 자격으로, 동등하거나 종속적인 모든 근원 및 중심을 무한히 통제하는 인격적 관계들을 유지한다. 그러한 통제력은 몸소 지닌 것이요, 그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렇더라도, 동등하거나 종속적인 근원 및 중심들과 인격체들이 완벽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력이 결코 실제로 작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1 근원 및 중심**은, 신격화됐거나 안됐거나, 인격있거나 인격아니거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모든 영역에서 근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의 우위성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 또한 그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어떤 상대성이나 완결성도 존재하지 못한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우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1. 물질 우주의 인력(引力)의 힘은 하부 **낙원**의 인력 중심에 집중된다. 그것이 바로, 왜 그의 인격자의 지리적 위치와, **낙원**의 하부, 즉 물질 평면의 힘-에너지 중심, 이 둘의 절대적 관계가 영원히 고정돼 있는가 하는 이유다. 그러나 **신격**의 절대 인격은, **낙원**의 윗면, 즉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2. 정신 세력들은 **무한한 영** 안에; 차별적이고 발산적(發散的)인 시공우주 정신은 **일곱 으뜸 영** 안에; **지존자**의 실제화 하는 정신은 시-공간 체험으로서 **위엄자**(威嚴者) 안에 집중된다.

3. 우주의 영(靈) 세력들은 **영원한 아들** 안에 집중된다.

4. 신격의 행위를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신격 절대자**에게 귀속한다.

5. 무한한 반응을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 있다.

6. 두 **절대자**는--곧 **조건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다.

7.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 또는 다른 어떤 도덕적 존재라도, 그 잠재적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안에 중심을 둔다.

실체는, 유한한 존재들이 납득하듯이,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림자와 같다. 유한한 진화 피조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격** 실체는, **지존하신 분**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에 선행(先行)하는 영원한 실체들, 유한을 초월하는 실체들도 있으며, 이들은 시-공간에서 진화된 피조물의 이 **지존하신 신격**의 조상이 된다. 보편적 실체의 기원과 본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유한한 정신 수준까지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시-공간의 추론 기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시에 생긴 영원의 사건들을, 우리는 연속된 진행사항들로서 묘사할 수밖에 없다.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such maintains personal relations of infinite control over all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urces and centers. Such control is personal and infinite in *potential*, even though it may never actually function owing to the perfection of the function of such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urces and centers and personalities.

0.3.11 (5.10)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refore, primal in all domains: deified or undeified, personal or impersonal, actual or potential, finite or infinite. No thing or being, no relativity or finality, exists except in direct or indirect relation to, and dependence on,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0.3.12 (5.1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related to the universe as:

0.3.13 (5.12) 1. The gravity forces of the material universes are convergent in the gravity center of nether Paradise. That is just why the geographic location of his person is eternally fixed in absolute relation to the force-energy center of the nether or material plane of Paradise. But the absolute personality of Deity exists on the upper or spiritual plane of Paradise.

0.3.14 (5.13) 2. The mind forces are convergent in the Infinite Spirit; the differential and divergent cosmic mind in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factualizing mind of the Supreme as a time-space experience in Majeston.

0.3.15 (5.14) 3. The universe spirit forces are convergent in the Eternal Son.

0.3.16 (5.15) 4. The unlimited capacity for deity action resides in the Deity Absolute.

0.3.17 (5.16) 5. The unlimited capacity for infinity response exists in the Unqualified Absolute.

0.3.18 (5.17) 6. The two Absolutes — Qualified and Unqualified — are co-ordinated and unified in and by the Universal Absolute.

0.3.19 (5.18) 7. The potential personality of an evolutionary moral being or of any other moral being is centered in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0.3.20 (5.19) REALITY, as comprehended by finite beings, is partial, relative, and shadowy. The maximum Deity reality fully comprehensible by evolutionary finite creatures is embraced within the Supreme Being. Nevertheless there are antecedent and eternal realities, superfinite realities, which are ancestral to this Supreme Deity of evolutionary time-space creatures. In attempting to portray the origin and nature of universal reality, we are forced to employ the technique of time-space reasoning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the finite mind. Therefore must

시_공간의 피조물이 **실체**의 기원과 분화{分化}를 고찰하건대, 영원하고 무한한 **자존자**{自存者}는 선천적이고 영원한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 무조건적 무한성의 족쇄를 벗어나서 **신격**의 해방을 획득했으며, 무조건적 무한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것은, 처음으로 **절대 신성의_긴장**을 일으켰다. **우주 절대자**가 이러한 무한성의 차별화로 생긴 긴장을 풀었고, **우주 절대자**는 **총체 신격**의 역동적 무한성과 **무조건 절대자**의 정적{靜的} 무한성을 통합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한다.

이러한 원래의 진행사항에서, 이론상 **자존자**{自存者}는 **원본**{原本}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인격 실현을 성취했고, 그와 동시에 **낙원 섬**의 **영원한 근원**이 됐다. **낙원**의 현존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차별화될 때부터 공존{共存}하는, **무한한 영**의 인격자와 **하보나** 중앙우주{中央宇宙}가 나타났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라는 공존하는 인격있는 **신격**이 출현함과 함께, **아버지**는, 한 인격체로서, **총체 신격**의 잠재력 전반에 걸쳐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분산을 피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신격** 잠재력을 채우는 일은 오직 동등한 두 **신격**과 이루는 **삼위 일체** 연합에서만 가능하며, 한편 체험적 **신격**은, **지존**, **궁극**, 및 **절대 신성**{神性} 수준에서 점점 더 실재화 되고 있다.

자존자 개념은, 시간에_묶이고 공간에_매인 사람의 유한한 정신에게, 그리고 영원성의 현존들을--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실체들 및 관계들을-- 피조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시_공간 피조물에게, **원인 없는 한 분**--곧 원초적 원인들의 원인-- 외에, 만물은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학적 가치_수준을 **자존자**로 개념화시키는 동시에,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자존자**와 영원히 공존함을, 다시 말해서, **자존자**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들**과 함께 **영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결코 없었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친다.

무한자라는 말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탁월성이 의미하는 충만함을--곧 완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론적인 자존자**는 “의지의 무한함”이 피조물의_철학으로 확장된 것이지만, **무한자**는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구속받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참된 무한성에 영원성이_강화{強化}됨을 나타내는, **실제** 가치_수준이다. 이 개념을 때때로 **아버지_무한자**라고 부른다.

높거나 낮은 모든 계층의 존재들이 **아버지_무한자**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혼동 대부분은, 그들의 납득 한계에 내재돼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 탁월성은 무한 이하의 수준에서는 명백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

many of the simultaneous events of eternity be presented as sequential transactions.

0.3.21 (6.1) As a time-space creature would view the origin and differentiation of Reality, the eternal and infinite I AM achieved Deity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unqualified infinity through the exercise of inherent and eternal free will, and this divorcement from unqualified infinity produced the first *absolute divinity-tension*. This tension of infinity differential is resolved by the Universal Absolute, which functions to unify and co-ordinate the dynamic infinity of Total Deity and the static infinit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0.3.22 (6.2) In this original transaction the theoretical I AM achieved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by becoming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simultaneously with becoming the Eternal Source of the Isle of Paradise. Coexistent with the differentiation of the Son from the Father, and in the presence of Paradise, there appeared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With the appearance of coexistent personal Deit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Father escaped, as a personality, from otherwise inevitable diffusion throughout the potential of Total Deity. Thenceforth it is only in Trinity association with his two Deity equals that the Father fills all Deity potential, while increasingly experiential Deity is being actualized on the divinity level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0.3.23 (6.3) The concept of the I AM is a philosophic concession which we make to the time-bound, space-fettered, finite mind of man, to the impossibility of creature comprehension of eternity existences — nonbeginning, nonending realities and relationships. To the time-space creature, all things must have a beginning save only the ONE UNCAUSED — the primeval cause of causes. Therefore do we conceptualize this philosophic value-level as the I AM, at the same time instructing all creatures that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coeternal with the I AM; in other words, that there never was a time when the I AM was not the *Father* of the Son and, with him, of the Spirit.

0.3.24 (6.4) The *Infinite* is used to denote the fullness — the finality — implied by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theoretical* I AM is a creature-philosophic extension of the “infinity of will,” but the Infinite is an *actual* value-level representing the eternity-intension of the true infinity of the absolute and unfettered fre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This concept is sometimes designated the Father-Infinite.

0.3.25 (6.5) Much of the confusion of all orders of beings, high and low, in their efforts to discover the Father-Infinite, is inherent in their limitations of comprehension. The absolute primacy of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pparent on subinfinite

한 영만이, **아버지**가 무한하심을 정말로 알 것이며; 그런 개념은, 다른 모든 인격체들에게 신앙의 과제에 해당한다.

4. 우주 실체

실체는 다양한 우주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실체화 되며; 실체는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그의 무한한 의지작용에 따라서 생겨나며, 우주가 실체화 되는 여러 다른 수준에서 세 가지 주요 국면으로 실현될 수 있다:

1. **신격화되지 않은 실체**는, 인격없는 세계의 에너지 영역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실존하는, 인격화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실체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까지 이른다.

2. **신격화된 실체**는, 인격의 영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유한자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자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무한한 **신격** 잠재력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래서 인격화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以上}의 모든 것의 영역을--심지어 **신격 절대자**의 현존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3. **상호연합된 실체**. 필경, 우주 실체는 신격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이지만, 신격화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잠재적이고 실체화 하는,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호연합된 실체의 광대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 대등한 실체 대부분은 **우주 절대자**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것이 근원적 실체의 주요 개념인데: **아버지가 실체**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실체의 주요 차별화는, 신격화된 존재와 신격화되지 않은 존재다--곧 **신격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다. 근본적인 관계는, 이 둘 사이의 긴장상태다. **아버지가** 시작한 신성의 긴장상태는, **우주 절대자**가 완전하게 해결하고, **우주 절대자**로서 영존화 한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실체는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1.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완전한 표현 속에 있는 실체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성장 수용력을 갖는 실체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실체이며; 필사적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영적 잠재성이다.

2. **절대적인 것과 준(準)절대적인 것**. 절대 실체들은 영원성 실존이다. 준절대 실체들은 두 수준에서 입안{立案}돼 있다: **유한절대자**--시간과 영원성 둘 다에 대해 상대적인 실체. 유한자--공간에서 입안돼 있고 시간세계에서 실체화되는 실체.

3.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낙원 신격**은 실존적이지만, 떠오르는 **지존자**와 **궁극자**는 체험적이다.

levels; therefore is it probable that onl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ruly know the Father as an infinity; to all other personalities such a concept represents the exercise of faith.

IV. UNIVERSE REALITY

0:4.1 (6.6) Reality differentially actualizes on diverse universe levels; reality originates in and by the infinite vol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is realizable in three primal phases on many different levels of universe actualization:

0:4.2 (6.7) 1. *Undeified reality* ranges from the energy domains of the nonpersonal to the reality realms of the nonpersonalizable values of universal existence, even to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0:4.3 (7.1) 2. *Deified reality* embraces all infinite Deity potentials ranging upward through all realms of personality from the lowest finite to the highest infinite, thus encompassing the domain of all that which is personalizable and more — even to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0:4.4 (7.2) 3. *Interassociated reality*. Universe reality is supposedly either deified or undeified, but to subdeified beings there exists a vast domain of interassociated reality, potential and actualizing, which is difficult of identification. Much of this coordinate reality is embraced within the realms of the Universal Absolute.

0:4.5 (7.3) This is the primal concept of original reality: The Father initiates and maintains Reality. The primal *differentials* of reality are the deified and the undeified — the Deity Absolute and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primal *relationship* is the tension between them. This Father-initiated divinity-tension is perfectly resolved by, and eternalizes as, the Universal Absolute.

0:4.6 (7.4) From the viewpoint of time and space, reality is further divisible as:

0:4.7 (7.5) 1. *Actual and Potential*. Realities existing in fullness of expression in contrast to those which carry undisclosed capacity for growth. The Eternal Son is an absolute spiritual actuality; mortal man is very largely an unrealized spiritual potentiality.

0:4.8 (7.6) 2. *Absolute and Subabsolute*. Absolute realities are eternity existences. Subabsolute realities are projected on two levels: Absonites — realities which are relative with respect to both time and eternity. Finites — realities which are projected in space and are actualized in time.

0:4.9 (7.7) 3.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but the emerging Supreme and Ultimate are experiential.

4. **인격있는 것과 인격아닌 것. 신격의 확장**, 인격의 표현, 및 우주의 진화는, **아버지**의 자유의지 행동에 따라서 영구히 조절되는데, **아버지**의 자유의지 행동은, **영원한 아들**에 중심을 두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정신과_영과_인격있는 실체성 또는 잠재성, 그리고 영원한 **낙원 섬**에 중심을 두고 내재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영원히 분리했다.

낙원이라는 말은, 우주 실체의 모든 국면에서 인격있는 초점과 인격없는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을 포함하는 용어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낙원**은, 실체, **신격**, 신성, 인격, 그리고 --영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체 형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가치, 의미, 및 사실적 현존에 관계되는, 기원, 활동, 및 운명의 장소로서 모두가 **낙원**을 공유한다.

낙원 섬--곧 달리 제한되지 않는 **낙원**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물질_인격을 통제하는 **절대물**이다. **낙원**은 움직이지 않는데, 온갖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지돼 있다. **낙원 섬**은 우주 위치를 갖지만, 공간에서는 자리가 없다. 영원한 이 **섬**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물리적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핵을 이루는 **빛의 섬**은 **신격**으로부터 파생됐지만, **신격**이 전혀 아니며; 물질 창조계들도 **신격**의 일부분이 아니며; 그것들은 하나의 결과다.

낙원은 창조자가 아니며; 여러 우주 활동을 독특하게 통제하는데, 반응장치라기보다는 통제 장치에 훨씬 가깝다. 물질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낙원**은 힘과 에너지 그리고 동력과 상관있는 모든 존재의 반응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낙원** 자체는 우주들 가운데서 독특하고 배타적이며 격리돼 있다. **낙원**은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고, 아무 것도 **낙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도 아니고 현존도 아니며; 그저 **낙원**일 뿐이다.

5. 인격 실체들

인격은 신격화된 실체의 한 수준이고, 필사자 및 중도자{中道者}의 경배와 지혜를 촉진하는 상류 정신 수준에서부터, 모론시아 및 영적 수준을 거쳐서, 인격이 완결을 달성하는 신분까지 분포한다. 이것은 필사_피조물 및 동종의_피조물 인격체가 진화로 상승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이 있다.

실체는 우주의 확장에 종속되고, 인격은 무한한 분화{分化}에 종속되며, 이 두 가지에 거의 제한받지 않는 **신격**의 조정과 영원한 안정이 가능하다. 인격없는 실체가 변화하는 범위는 뚜렷이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가 알건대, 인격 실체의 점진적 진화에는 어떤 제한조건도 없다.

달성된 체험 수준에서, 모든 인격 계층이나

0:4.10 (7.8) 4. *Personal and Impersonal.* Deity expansion, personality expression, and universe evolution are forever conditioned by the Father's freewill act which forever separated the mind-spirit-personal meanings and values of actuality and potentiality centering in the Eternal Son from those things which center and inhere i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0:4.11 (7.9) PARADISE is a term inclusive of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focal Absolutes of all phases of universe reality. Paradise, properly qualified, may connote any and all forms of reality, Deity, divinity, personality, and energy — spiritual, mindal, or material. All share Paradise as the place of origin, function, and destiny, as regards values, meanings, and factual existence.

0:4.12 (7.10) *The Isle of Paradise* — Paradise not otherwise qualified — is the Absolute of the material-gravity contro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Paradise is motionless, being the only stationary th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Isle of Paradise has a universe location but no position in space. This eternal Isle is the actual source of the physical universes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nuclear Isle of Light is a Deity derivative, but it is hardly Deity; neither are the material creations a part of Deity; they are a consequence.

0:4.13 (7.11) Paradise is not a creator; it is a unique controller of many universe activities, far more of a controller than a reactor. Throughout the material universes Paradise influences the reactions and conduct of all beings having to do with force, energy, and power, but Paradise itself is unique, exclusive, and isolated in the universes. Paradise represents nothing and nothing represents Paradise. It is neither a force nor a presence; it is just *Paradise*.

V. PERSONALITY REALITIES

0:5.1 (8.1) Personality is a level of deified reality and ranges from the mortal and midwayer level of the higher mind activation of worship and wisdom up through the morontial and spiritual to the attainment of finality of personality status. That is the evolutionary ascent of mortal- and kindred-creature personality, but there are numerous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0:5.2 (8.2) Reality is subject to universal expansion, personality to infinite diversification, and both are capable of well-nigh unlimited Deity co-ordination and eternal stabilization. While the metamorphic range of nonpersonal reality is definitely limited, we know of no limitations to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personality realities.

0:5.3 (8.3) On attained experiential levels all

가치는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심지어 공동_창조적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현재 신분--곧 **사람의 아들** 및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주 절묘하게 증거된 바와 같이,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도 통합된 인격 안에서 함께_존재할 수 있다.

준무한{準無限} 인격의 모든 계층과 단계는, 연합해서 달성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공동_창조적이다. 인격이전 존재, 인격있는 존재, 및 인격을_초월한 존재는, 상호적 잠재력, 즉 대등하게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모두 함께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인격아닌 존재는, 인격있는 존재로 직접 변형될 수가 결코 없다. 인격은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 **낙원 아버지**의 선물이다. 인격은 에너지 위에 덧붙여지고, 오직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와만 연합되며; 정체성은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 원형{原型}과 결합될 수 있다.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 실체, 인격 증여, 그리고 인격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 인격, 즉 영적 에너지, 모론시아 영{靈}들, 및 완전하게 된 영들의 비밀이다. **공동 행위자**는, 영_정신 인격, 즉 지성, 이성, 및 우주적 정신의 근원이다. 그러나 **낙원 섬**은, 인격없고 영적 범위를 벗어나며, **낙원 섬**은 우주적 본체의 핵심이요, 물리적 물체의 근원 및 중심이요,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적인 으뜸 원형{原型}이다.

우주 실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유란시아**의 인간 체험 속에 나타난다:

1. 육신. 사람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유기체. 동물 본성과 기원을 갖는, 살아있는 전기_화학적 장치.

2. 정신. 인간 유기체의, 생각하고 감지하고 느끼는 장치. 의식하는 체험과 무의식 체험 전체. 경배와 지혜를 통하여 위로 영 수준에 이르는, 감정적 생명과 연합된 지성.

3. 영. 사람의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성한 영-**사도 조울사**. 불멸하는 이 영은 인격이전{人格以前}이다--생존하는 필사적 피조물 인격의 일부본이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격이 아니다.

4. 혼. 사람의 혼은 체험으로 획득된다. 필사적 피조물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듯이, 내주하는 영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자의 물질 정신은, 바로 이 떠오르는 실체의 어머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다--**모론시아적**이다. 이것은 출현하는 불멸{不滅}하는 혼인데, 필사자가 죽은 뒤에 살아남아서 **낙원** 상승을 시작하는 운명을 지녔다.

personality orders or values are associable and even cocreational. Even God and man can coexist in a unified personality, as is so exquisitely demonstrated in the present status of Christ Michael — Son of Man and Son of God.

0:5.4 (8.4) All subinfinite orders and phases of personality are associative attainables and are potentially cocreational. The prepersonal, the personal, and the superpersonal are all linked together by mutual potential of co-ordinate attainment, progressive achievement, and cocreational capacity. But never does the impersonal directly transmute to the personal. Personality is never spontaneous; it is the gift of the Paradise Father. Personality is superimposed upon energy, and it is associated only with living energy systems; identity can be associated with nonliving energy patterns.

0:5.5 (8.5) The Universal Father is the secret of the reality of personality, the bestowal of personality, and the destiny of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personality, the secret of spiritual energy, morontia spirits, and perfected spirits. The Conjoint Actor is the spirit-mind personality, the source of intelligence, reason, and the universal mind. But the Isle of Paradise is nonpersonal and extraspirtual, being the essence of the universal body, the source and center of physical matter, and the absolute master pattern of universal material reality.

0:5.6 (8.6) These qualities of universal reality are manifest in Urantian human experience on the following levels:

0:5.7 (8.7) 1. *Body*. The material or physical organism of man. The living electrochemical mechanism of animal nature and origin.

0:5.8 (8.8) 2. *Mind*. The thinking, perceiving, and feeling mechanism of the human organism. The total conscious and unconscious experience. The intelligence associated with the emotional life reaching upward through worship and wisdom to the spirit level.

0:5.9 (8.9) 3. *Spirit*. The divine spirit that indwells the mind of man — the Thought Adjuster. This immortal spirit is prepersonal — not a personality, though destined to become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the surviving mortal creature.

0:5.10 (8.10) 4. *Soul*. The soul of man is an experiential acquirement. As a mortal creature choose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so the indwelling spirit becomes the father of a *new reality* in human experience.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is the mother of this same emerging reality. The substance of this new reality is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 it is *morontial*. This is the emerging and immortal soul which is destined to survive mortal death and begin the Paradise ascension.

인격. 필사적 사람의 인격은, 몸이나 정신이나 영이 아니며, 혼도 아니다. 인격은 다른 면에서 계속 변하는 피조물 체험 속에서 유일하게 변함 없는 실체이며; 개체성의 다른 모든 관련된 요소를 통합시킨다. 인격은, 물질과 정신과 영의 살아있고 연합된 에너지 위에 **만유의 아버지**가 부여한 독특한 증여물이며, 모론시아 혼이 생존할 때 함께 생존한다.

모론시아라는 말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끼어 있는 방대한 수준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것은 인격있는 실체 또는 인격아닌 실체, 살아있거나 살아 있지 않은 에너지를 가리킬 수 있다. 모론시아의 날줄은 영적이며; 그 씨줄은 물리적이다.

6. 에너지와 원형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인격있다고 말한다. **아들**의 영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한한 영**의 한 속성인 정신이다--그 모든 국면의 정신이다. 하부 **낙원**에 중심을 두는 물질_인력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물질이라고--곧 온갖 변형 상태에 있는 에너지_물질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영적, 정신적, 및 물질적 영역에 적용되는,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힘{세력}** 역시 그렇게 널리 사용된다. **동력{능력}**은 대개 광우주에 있는 물질적 또는 직선적_인력_반응 물질의 전자 수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능력은 주권을 의미할 때도 사용된다. 우리는 너희가 두루 사용하는 힘, 에너지, 및 동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언어 부족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들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국면이나 형태든지, 현상의 움직임과 행위 그리고 잠재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물리적_에너지가 현시{顯示}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공우주의 힘, 출현하는 에너지, 그리고 우주 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시공우주의 힘**은, **무조건 절대자**로부터 파생되지만 아직 **낙원**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한다.

2. **출현하는 에너지**는, **낙원** 인력에 반응하지만 아직 국지적 또는 직선적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자{電子}가 생기기 전 수준의 에너지_물질이다.

3. **우주 동력**은, **낙원** 인력에 여전히 반응하는

0:5.11 (9.1) *Personality*. The personality of mortal man is neither body, mind, nor spirit; neither is it the soul. Personality is the one changeless reality in an otherwise ever-changing creature experience; and it unifies all other associated factors of individuality. The personality is the unique bestowal which the Universal Father makes upon the living and associated energies of matter, mind, and spirit, and which survives with the survival of the morontial soul.

0:5.12 (9.2) *Morontia* is a term designating a vast level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t may designate personal or impersonal realities, living or nonliving energies. The warp of morontia is spiritual; its woof is physical.

VI. ENERGY AND PATTERN

0:6.1 (9.3) Any and all things responding to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Father, we call personal. Any and all things responding to the spirit circuit of the Son, we call spirit. Any and all that responds to the mind circuit of the Conjoint Actor, we call mind, mind as an attribute of the Infinite Spirit — mind in all its phases. Any and all that responds to the material-gravity circuit centering in nether Paradise, we call matter — energy-matter in all its metamorphic states.

0:6.2 (9.4) ENERGY we use as an all-inclusive term applied to spiritual, mindal, and material realms. Force is also thus broadly used. Power is ordinarily limited to the designation of the electronic level of material or linear-gravity-responsive matter in the grand universe. Power is also employed to designate sovereignty. We cannot follow your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s of force, energy, and power. There is such paucity of language that we must assign multiple meanings to these terms.

0:6.3 (9.5) *Physical energy* is a term denoting all phases and forms of phenomenal motion, action, and potential.

0:6.4 (9.6) In discussing physical-energy manifestations, we generally use the terms cosmic force, emergent energy, and universe power. These are often employed as follows:

0:6.5 (9.7) 1. *Cosmic force* embraces all energies deriving from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hich are as yet un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0:6.6 (9.8) 2. *Emergent energy* embraces those energies which are 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but are as yet unresponsiv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is is the pre-electronic level of energy-matter.

0:6.7 (9.9) 3. *Universe power* includes all forms of

한편 직선적 인력에 직접 반응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에너지_물질 및 그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진화의 전자{電子} 수준이다.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덧붙여서, 살아있는 사역이 현존하고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이며; 모든 지성 수준에 적용된다. 인격 안에서, 정신은 영과 물질 사이에 늘 개입하며; 따라서 우주는: 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영 발광{發光}, 이 세 종류의 빛으로 조명된다.

빛은--곧 영 발광은, 다양한 계층의 영 존재의 특질을 지닌 인격이 형태화된 것을 가리키는 단어 상징, 즉 비유적 표현이다. 이 빛의 방출은,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 빛이 나타내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도 관계없다.

원형{原型}은, 물질적, 영적, 정신적 에너지, 또는 이 여러 에너지의 어떤 조합으로든지 기획될 수 있다. 원형은, 인격, 정체성, 실재, 또는 살아있지 않은 물질에 스며들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은 원형이고 원형으로 남아 있으며; 오직 복사본들만 늘어난다.

원형은 에너지를 배열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인력이 에너지와 물질을 유일하게 통제한다. 공간뿐 아니라 원형도 인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공간과 원형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 공간은 원형이 아니고 잠재적 원형도 아니다. 원형은 모든 인력에 신세지지 않는 실체의 윤곽이며; 어떤 원형이든지 그 실체는 그것의 여러 에너지, 즉 그것의 정신, 영, 또는 물질 성분으로 이뤄진다.

전체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원형은 에너지 및 인격의 개별 모습을 드러낸다. 인격 또는 정체성 형태는 (물리적,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원형이지만, 이런 에너지에 내재적이지는 않다. 원형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에너지 또는 인격의 그 속성은, **낙원** 힘을 부여하는 **하나님**--곧 **신격**-- 탓이라고, 인격격과 동력의 공동_현존 탓이라고 해도 좋다.

원형{原型}은 복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근본 설계도{設計圖}다. 영원한 **낙원**은 원형들의 절대치{絕對值}이며; 영원한 **아들**은 원형 인격이며; **만유의 아버지**는 그 둘 다의 직접 조상이요_근원이다. 그러나 **낙원**은 원형을 증여하지 않으며, **아들**은 인격을 증여할 수 없다.

7. 지존하신 분

총괄우주에서 **신격** 체계는 영원성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중적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은 영원하며--곧 실존적 존재들이며, 한편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energy which, while still responding to Paradise gravity, are directly responsive to linear gravity. This is the electronic level of energy-matter and all subsequent evolutions thereof.

0:6.8 (9.10) *Mind* is a phenomenon connoting the presence-activity of *living ministry* in addition to varied energy systems; and this is true on all levels of intelligence. In personality, mind ever intervenes between spirit and matter; therefore is the universe illuminated by three kinds of light: material light, intellectual insight, and spirit luminosity.

0:6.9 (10.1) *Light* — spirit luminosity — is a word symbol, a figure of speech, which connotes the personality manifestation characteristic of spirit beings of diverse orders. This luminous emanation is in no respect related either to intellectual insight or to physical-light manifestations.

0:6.10 (10.2) *PATTERN* can be projected as material, spiritual, or mindal, or any combination of these energies. It can pervade personalities, identities, entities, or nonliving matter. But pattern is pattern and remains pattern; only *copies* are multiplied.

0:6.11 (10.3) Pattern may configure energy, but it does not control it. Gravity is the sole control of energy-matter. Neither space nor pattern are gravity responsive, bu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attern; space is neither pattern nor potential pattern. Pattern is a configuration of reality which has already paid all gravity debt; the *reality* of any pattern consists of its energies, its mind, spirit, or material components.

0:6.12 (10.4) In contrast to the aspect of the *total*, pattern discloses the *individual* aspect of energy and of personality. Personality or identity forms are patterns resultant from energy (physical, spiritual, or mindal) but are not inherent therein. That quality of energy or of personality by virtue of which pattern is caused to appear may be attributed to God — Deity — to Paradise force endowment, to the coexistence of personality and power.

0:6.13 (10.5) Pattern is a master design from which copies are made. Eternal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the Eternal Son is the pattern personality; the Universal Father is the direct ancestor-source of both. But Paradise does not bestow pattern, and the Son cannot bestow personality.

VII. THE SUPREME BEING

0:7.1 (10.6) The Deity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is twofold as concerns eternity relationship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are eternal — are existential beings

하나님은, 총괄우주가 진화로 확장하는, 시_공간의 구체(球體)와 시_공간을 초월하는 구체들에서, **하보나** 이후 시기에 **실제화**하는 **신격** 인격들이다. 영원한 **낙원 신격**들이 연합해서_창조하여 잠재성을 체험적으로 실제화하는 기법으로, 성장하는 우주들에서 이 실제화 하는 **신격** 인격들은, 자신이 권능으로_인격화 할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 영원자(永遠者)가 된다.

그러므로 **신격**은 현존에서 이중적이다:

1. **실존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현존하는 존재들.

2. **체험적** --**하보나** 이후에 현재 속에서 실제화 하지만, 모든 미래 영원성 내내 끝없이 현존하는 존재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실존적이다--실제로 실존적이다(하지만 모든 잠재성은 체험을 거친다고 생각된다). **지존자**와 **궁극자**는 전적으로 체험적이다. **신격 절대자**는, 실제화할 때는 체험적이지만, 잠재성에서는 실존적이다. **신격**의 본질은 영원하지만, **신격**의 세 원본 인격자만 무조건 영원하다. 모든 다른 **신격** 인격은 어떤 기원을 갖지만, 그 운명은 영원하다.

아버지는, 실존적 **신격**으로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아들**과 **영** 안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인격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신격 수준들에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체험적 표현을 성취하고 계시지만;이 체험적 **신격**들이 지금은 온전히 현존하지는 않으며;실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하보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은, 삼중(三重) **낙원 신격**의 인격있는 영 그림자다. 이 연합하는 **신격** 관계는, 이제 **칠중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창조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광우주에서 **전능한 지존자**의 체험적 권능으로 합성하고 있다. 세 인격자로서 실존적인 **낙원 신격**은, **지존성**의 두 단계에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 이중적 단계는 하나의 **주(主)**, 즉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과_인격을 통합하고 있다.

만유의 아버지는, 삼자일체되는 기법, 즉 삼중적 **신격**으로 인격화함으로 무한성의 속박과 영원성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로 해방을 성취하신다.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시_공간 지역들에서, **신격**의 칠중 현시를 준영원(準永遠) 인격으로 통합한 분으로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위엄자의 아버지인 것을 제외하면, **지존하신 분**은 직접 창조자가 아니지만, 피조물과_창조주의 모든 우주 활동을 종합하는 조정자다. **지존하신 분**은, 이제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실제화하고

— while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are *actualizing* Deity personalities of the post-Havona epochs in the time-space and the time-space-transcended spheres of master universe evolutionary expansion. These actualizing Deity personalities are future eternal from the time when, and as, they power-personalize in the growing universes by the technique of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the associative-creative potentials of the eternal Paradise Deities.

0:7.2 (10.7) Deity is, therefore, dual in presence:

0:7.3 (10.8) 1. *Existential* — beings of eternal existence, past, present, and future.

0:7.4 (10.9) 2. *Experiential* — beings actualizing in the post-Havona present but of unending existence throughout all future eternity.

0:7.5 (10.10)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existential — existential in actuality (though all potentials are supposedly experiential).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are wholly experiential. The Deity Absolute is experiential in actualization but existential in potentiality. The essence of Deity is eternal, but only the three original persons of Deity are unqualifiedly eternal. All other Deity personalities have an origin, but they are eternal in destiny.

0:7.6 (10.11) Having achieved existential Deity expression of himself in the Son and the Spirit, the Father is now achieving experiential expression on hitherto impersonal and unrevealed deity levels as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but these experiential Deities are not now fully existent; they are in process of actualization.

0:7.7 (11.1) *God the Supreme* in Havona is the personal spirit reflection of the triune Paradise Deity. This associative Deity relationship is now creatively expanding outward in God the Sevenfold and is synthesizing in the experiential power of the Almighty Supreme in the grand universe. Paradise Deity, existential as three persons, is thus experientially evolving in two phases of Supremacy, while these dual phases are power-personality unifying as one Lord, the Supreme Being.

0:7.8 (11.2) The Universal Father achieves freewill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infinity and the fetters of eternity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threefold Deity personalization. The Supreme Being is even now evolving as a subeternal personality unification of the sevenfold manifestation of Deity in the time-space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0:7.9 (11.3) *The Supreme Being* is not a direct creator, except that he is the father of Majeston, but he is a synthetic co-ordinator of all creature-Creator universe activities. The Supreme Being,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최상급 창조주**들과 체험적 관계를 가지면서, 삼중 **낙원 신격**의 시_공간 신성을 상호관련시키고 합성하는 **신격**이다. 마침내 실재화 되면, 이 진화하는 **신격**은 유한계와 무한계의 영원한 융합이--곧 체험적 동력과 영 인격의 영구적이고 분해될 수 없는 합일{合一}이-- 될 것이다.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지도적 자극을 받으면서, 모든 시_공간 유한 실체는, 유한한 실체의 모든 단계와 가치를 계속 더 동원{動員}하고, 이를 완전히 통일하는 일(권능과 인격을 합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원** 실체의 다양한 국면과 관련해서, 피조물을 초월하여 달성하는 유한절대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시도를 나중에 개시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위한 것이다.

8. 칠중 하나님

신분의 유한성{有限性}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념의 피조계 제한조건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만유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화하는 피조물이 **신격**에 이르는 칠중{七重} 접근법을 마련하셨다:

1. **낙원 창조주 아들**들.
2. **태고 항존자**{恒存者}들.
3. **일곱 으뜸 영**.
4. **지존하신 분**.
5. **영 하나님**.
6. **아들 하나님**.
7.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신격**이 이렇게 일곱 겹으로 인격화한 것은,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영{靈}이신 **하나님**의 현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지존하신 분** 안에서 언젠가 권능으로 인격화하는 유한한 시_공간 피조물에게, 이 칠중 **신격**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생애를 사는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에게 기능적 **신격**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체험적으로 발견하는 생애는,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시작하고,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인격자를 경유해서,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을 발견하고 인식하기까지 상승한다.

광우주는, **지존 삼위일체**, **칠중 하나님**, 및 **지존하신 분**의 삼중적 **신격** 영역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 잠재하고, 자신의 인격과 영 속성들을 **삼위일체**로부터 도출하지만, 이제

now actualizing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is the Deity correlator and synthesizer of time-space divinity, of triune Paradise Deity in experiential association with the Supreme Creators of time and space. When finally actualized, this evolutionary Deity will constitute the eternal fusion of the finite and the infinite — the everlasting and indissoluble union of experiential power and spirit personality.

0:7.10 (11.4) All time-space finite reality, under the directive urge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is engaged in an ever-ascending mobilization and perfecting unification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all phases and values of finite reality, in association with varied phases of Paradise reality, to the end and for the purpose of subsequently embarking upon the attempt to reach absonite levels of supercreature attainment.

VIII. GOD THE SEVENFOLD

0:8.1 (11.5) To atone for finity of status and to compensate for creature limitations of concept, the Universal Father has established the evolutionary creature's sevenfold approach to Deity:

- 0:8.2 (11.6) 1. The Paradise Creator Sons.
- 0:8.3 (11.7) 2. The Ancients of Days.
- 0:8.4 (11.8) 3. The Seven Master Spirits.
- 0:8.5 (11.9) 4. The Supreme Being.
- 0:8.6 (11.10) 5. God the Spirit.
- 0:8.7 (11.11) 6. God the Son.
- 0:8.8 (11.12) 7. God the Father.

0:8.9 (11.13) This sevenfold Deity personalization in time and space and to the seven superuniverses enables mortal man to attain the presence of God, who is spirit. This sevenfold Deity, to finite time-space creatures sometime power-personalizing in the Supreme Being, is the functional Deity of the mortal evolutionary creatures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Such an experiential discovery-career of the realization of God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divinity of the Creator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ascends through the superuniverse Ancients of Days and by way of the person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o the attainment of the discovery and recognition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0:8.10 (12.1) The grand universe is the threefold Deity domain of the Trinity of Supremacy, God the Sevenfold, and the Supreme Being. God the Supreme is potential in the Paradise Trinity, from whom he derives his personality and spirit

창조주 아들들, **태고 항존자들**, 및 **으뜸 영들** 안에서 실제화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연방우주들에 대하여 **전능자**로서 자신의 권능을 그들로부터 얻어낸다. 진화하는 피조물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현시{顯示}는, 실제로 피조물과 함께 시_공간에서 진화한다. 인격없는 활동의 가치_수준에서 진화하는 **전능한 지존자** 및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는 **하나의 실체다--지존하신 분**이다.

칠중 하나님의 신격 연합체 안에서 **창조주 아들들**은, 필사적 사람이 불멸하게 하고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준다. 권능과 인격을 동원하는, 이 모든 다양한 진행사항들을 신성하게 합성하는 기법을, **지존하신 분**이 마련해주는데, 그리하여 **지존하신 분**은, 유한자로 하여금 유한절대에 도달하게 하고, 미래의 다른 가능한 실제화들을 통해서 **궁극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창조주 아들들** 및 관련된 **신성한 사역자들**이 이 최상의 준비작업에 참여하지만, **태고 항존자들**과 **일곱 으뜸 영**은 아마 광우주에서 영구적 관리자로서 영원히 고정돼 있을 것이다.

칠중 하나님의 기능은, 일곱 연방우주가 조직될 때부터 비롯됐으며, 아마 외부 공간의 창조계들이 미래에 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확장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공간 층{層}에서 이 미래 우주들이 조직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신격**에 이르는 초월적 유한절대 접근법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9. 궁극자 하나님

지존하신 분은, 둘러싼 광우주의 에너지 및 인격 잠재성의 선행{先行}하는 신성{神性} 재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며, 마찬가지로 **궁극자 하나님**은, 총괄우주의 시_공간 초월 영역에 거하는 신성의 잠재성으로부터 결말에 이른다. **궁극자 신격**이 실제화하는 것은,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유한절대적으로 통합됐음을 가리키며, 둘째 수준의 창조적 자아_실현에서 통합하는 **신격**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월된 시_공간 가치가 결말에 이르는 수준에서, **낙원**의 유한절대 실체들이 우주에서 체험적 **신격**으로 실제화하는 것과 인격_권능 면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체험적 전개가 완성되는 것은, **지존하신 분**이 실현을 완성함으로, 그리고 **칠중 하나님**의 사역으로 유한절대 수준에 도달하는, 시_공간의 모든 피조물에게 궁극적 봉사_운명을 제공하도록 고안돼 있다.

attributes; but he is now actualizing in the Creator Sons, Ancients of Days, and the Master Spirits, from whom he derives his power as Almighty to the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is power manifestation of the immediate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actually time-space evolves concomitantly with them. The Almighty Supreme, evolving on the value-level of nonpersonal activities, and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are *one reality* — the Supreme Being.

0:8.11 (12.2) The Creator Sons in the Deity association of God the Sevenfold provide the mechanism whereby the mortal becomes immortal and the finite attains the embrace of the infinite. The Supreme Being provides the technique for the power-personality mobilization, the divine synthesis, of *all* these manifold transactions, thus enabling the finite to attain the absonite and, through other possible future actualizations, to attempt the attainment of the Ultimate. The Creator Sons and their associated Divine Ministers are participants in this supreme mobilization, but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probably eternally fixed as permanent administrators in the grand universe.

0:8.12 (12.3) The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dates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it will probably expand in connection with the future evolution of the creations of outer space. The organization of these future universes of the primary, secondary, tertiary, and quartan space levels of progressive evolution will undoubtedly witness the inauguration of the transcendent and absonite approach to Deity.

IX. GOD THE ULTIMATE

0:9.1 (12.4) Just as the Supreme Being progressively evolves from the antecedent divinity endowment of the encompassed grand universe potential of energy and personality, so does God the Ultimate eventuate from the potentials of divinity residing in the transcended time-space domains of the master universe. The actualization of Ultimate Deity signalizes absonite unification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and signifies unifying Deity expansion on the second level of creative self-realization. This constitutes the personality-power equivalent of the universe experiential-Deity actualization of Paradise absonite realities on the eventuating levels of transcended time-space values. The completion of such an experiential unfoldment is designed to afford ultimate service-destiny for all time-space creatures who have attained absonite levels through the comple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nd by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궁극자하나님은 유한절대자의 신성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격있는 **신격**을 가리킨다. **궁극자**는 최상을 초월해서 결말에 이르는 **신격**이다. **지존자**는 유한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 통합이며; **궁극자**는 유한절대 존재들이 이해하는 **낙원 삼위일체**의 통합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진화하는 **신격**의 체제를 통해서, 각자의 우주 의미 수준에서, 유한자, 유한절대자,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의 신성한 실체 가치의, 인격 집중과 동력 동원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행동에 실제로 참여한다.

영원한 과거를 가진 처음 세 **낙원 신격**은--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진화하는 동료 **신격**들이--곧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아마 **절대자 하나님**-- 체험으로 실제화함으로써, 인격 보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은, 지금 체험적 우주에서 진화하고 있는데, 실존적이 아니다--과거 영원자들이 아니라, 오직 미래 영원자들, 시공간에 맞춰지고 초월성에 맞춰진 영원자들이다. 그들은 최상의 재능, 궁극적 재능, 그리고 아마 최상의 궁극적 재능을 가진 **신격**이지만, 우주에서 역사적 기원을 겪었다. 이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겠지만, 인격의 시작이 있었다. 이들은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신격** 잠재성이 실제화한 분들이지만, 그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10. 절대자 하나님

신격 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에는, 시공간의 유한한 지성인에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특색이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이 실제화하는 것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즉 **절대 삼위일체**가 통합되는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체험적 실현, 즉 절대 수준에서 절대적 의미를 가진 것들의 통합이었지만; 우리는 결코, **한정된 절대자**가 **무한자**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절대 가치의 범위에 관해 확신하지 못한다. 궁극을 초월하는 운명은 절대 의미와 무한한 영성 {靈性}에 관련되며, 아직 달성되지 않은 이 두 실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가치를 확립할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은 유한절대를 초월하는 모든 존재가 실현하고 달성할 목표이지만, **신격 절대자**의 권능과 인격 잠재성은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

0:9.2 (12.5) *God the Ultimate* is designative of personal Deity functioning on the divinity levels of the absonite and on the universe spheres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The Ultimate is a supersupreme eventuation of Deity. The Supreme is the Trinity unification comprehended by finite beings; the Ultimate is the unific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comprehended by absonite beings.

0:9.3 (13.1)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mechanism of evolutionary Deity, is actually engaged in the stupendous and amazing act of personality focalization and power mobilization, on their respective universe meaning-levels, of the divine reality values of the finite, the absonite, and even of the absolute.

0:9.4 (13.2) The first three and past-eternal Deities of Paradise —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are, in the eternal future, to be personality-complemented by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associate evolutionary Deities —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possibly God the Absolute.

0:9.5 (13.3) God the Supreme and God the Ultimate, now evolving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are not existential — not past eternal, only future eternal, time-space-conditioned and transcendental-conditioned eternal. They are Deities of supreme, ultimate, and possibly supreme-ultimate endowments, but they have experienced historic universe origins. They will never have an end, but they do have personality beginnings. They are indeed actualizations of eternal and infinite Deity potentials, but they themselves are neither unqualifiedly eternal nor infinite.

X. GOD THE ABSOLUTE

0:10.1 (13.4) There are many features of the eternal reality of the *Deity Absolute* which cannot be fully explained to the time-space finite mind, but the actu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would be in consequence of the unification of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the Absolute Trinity. This would constitute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absolute divinity, the unification of absolute meanings on absolute levels; but we are not certain regarding the encompassment of all absolute values since we have at no time been informed that the Qualified Absolute is the equivalent of the Infinite. Superultimate destinies are involved in absolute meanings and infinite spirituality, and without both of these unachieved realities we cannot establish absolute values.

0:10.2 (13.5) God the Absolute is the realization-attainment goal of all superabsonite beings, but the power and personality potential of the Deity

며, 우리는 체험으로 실제화하는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체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

11. 세 절대자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통합된 사고{思考}가 **행동의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면서 신성한 중앙 우주를 창조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하보나** 현존을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구별시킴으로써, 자신의 사고가 표현되는 대로 **아들**의 말씀과 **공동 행정관**의 행위를 따라가셨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이 무한한 잠재성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 감춰질 수 있고, **신격 절대자** 안에 신성하게 가려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이 둘은 **우주 절대자**가 활동할 때 하나가 되며, 이 **우주 절대자**는 **낙원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이_통합된 분이다.

체험적 성장으로, 그리고 **우주 절대자**가 체험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을 상호_연결지음으로, 총 실체가 풍성하게 되는 동안에, 시공우주의 힘의 효력과 영 힘의 효력은 모두 점진적으로 계시되고_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균형을 이루는 **우주 절대자**의 현존 덕분에, **제1 근원 및 중심**은 체험적 권능의 확장을 실현하고, 자신의 진화하는 피조물과 하나 됨을 누리며, **지존**, **궁극**, 및 **절대**라는 수준에서 체험적 **신격**의 확장을 달성한다.

신격 절대자를 **무조건 절대자**로부터 완전하게 구별할 수 없을 때, 이들의 혼합된 기능 또는 조화된 현존으로 추측되는 것은 **우주 절대자**의 행위라고 부른다.

1. **신격 절대자**는 전능한 활성화{活性者}인 것처럼 보이며, 한편 **무조건 절대자**는 최상으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온갖 우주, 심지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허다한 우주들까지, 전적으로_유능하게 기계화시키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신격 절대자는, 어떤 우주 상황에 대해서든지, 준절대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절대자**의 모든 반응은, 언제나 그 현재 실존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춰서, 전체 창조의 사물 및 존재들의 복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신격 절대자는, **만유의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무한 실체 전부로부터 분리된 그 잠재성이며, 그 안에서 신{神}의 모든 --실존적 및 체험적-- 활동이 일어난다. 이 잠재성은 **무조건 절대자**와 대비되는 **조건 절대자**이지만; 모든 절대적 잠

Absolute transcends our concept, and we hesitate to discuss those realities which are so far removed from experiential actualization.

XI. THE THREE ABSOLUTES

0:11.1 (13.6) When the combined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functioning in the God of Action, constituted the creation of the divine and central universe, the Father followed the expression of his thought into the word of his Son and the act of their Conjoint Executive by differentiating his Havona presence from the potentials of infinity. And these undisclosed infinity potentials remain space concealed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divinely enshrouded in the Deity Absolute, while these two become one in the functioning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 unrevealed infinity-unity of the Paradise Father.

0:11.2 (13.7) Both potency of cosmic force and potency of spirit force are in process of progressive revelation-realization as the enrichment of all reality is effected by experiential growth and through the correlation of the experiential with the existential by the Universal Absolute. By virtue of the equipoising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realizes extension of experiential power, enjoys identification with his evolutionary creatures, and achieves expansion of experiential Deity on the level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0:11.3 (14.1) When it is not possible fully to distinguish the Deity Absolute from the Unqualified Absolute, their supposedly combined function or co-ordinated presence is designated the action of the Universal Absolute.

0:11.4 (14.2) 1. *The Deity Absolute* seems to be the all-powerful activator, while the Unqualified Absolute appears to be the all-efficient mechanizer of the supremely unified and ultimately co-ordinated universe of universes, even universes upon universes, made, making, and yet to be made.

0:11.5 (14.3) The Deity Absolute cannot, or at least does not, react to any universe situation in a subabsolute manner. Every response of this Absolute to any given situation appears to be made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whole creation of things and beings, not only in its present state of existence, but also in view of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all future eternity.

0:11.6 (14.4) The Deity Absolute is that potential which was segregated from total, infinite reality by the freewill choi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within which all divinity activities —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 take place. This is the *Qualified*

제성을 포함하는 **우주 절대자**는 이 둘을 더한 것보다 크다.

2. **무조건 절대자**는 인격없고, 신성을 벗어 나고, 신격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조건 절대자**에게는, 인격, 신성, 및 모든 창조자 특권이 결여돼 있다. 사실이나 진실, 체험이나 계시, 철학이나 유한절대성 가운데 어느 것도, 우주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절대자**의 본성과 성품을 간파할 수 없다.

무조건 절대자는 광우주에 널리 퍼지는 **확실한 실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자, 그리고 이 실체는 일곱 연방우주 너머에 압도적으로 뻗어나가는 공간 지역들에서, 공간에 한결같이 현존하면서 물질 이전{以前}의 진화가 생기는 쪽으로 확장하는 듯하다. **무조건 절대자**는, 조건 없는 것들과 제한받지 않는 것들이 보편적이고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형이상학적 궤면에 근거한 철학적 개념을 단순히 부정한 생각이 아니다. **무조건 절대자**는 무한하고 확실한 우주 전면통제력이며; 이러한 전면통제는 공간 힘에 제한이 없지만, 생명, 정신, 영, 및 인격의 현존에 따라서 분명하게 조절되고, **낙원 삼위일체**의 의지_반응과 의도하는 명령에 따라서 더욱 조절된다.

무조건 절대자는, 형이상학의 범신론적 개념들, 또는 한때 있었던 과학의 에테르 가설에 비교될만한, 확일적이고 전체에 퍼지는 영향력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무조건 절대자**는 무제한적이고 **신격**의 조절을 받는 세력이지만, 우리는 이 **절대자**와 우주의 영 실체들의 관계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다.

3. **우주 절대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바로는, 우주 실체들을 신격화된 가치와 비 신격화된 가치로--곧 인격화될 수 있는 것과 인격화될 수 없는 것으로--구별시키는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 자유의지{自由意志} 행위에 필연적이었다. **우주 절대자**는 우주 실체를 이처럼 구별시키는 자유의지 행위로 창조된 긴장상태가 해결됨을 암시하는, **신격**의 현상이며, 이 **절대자**는 이 실존적 잠재성들의 전체 총합을 연합적으로 조정하는 자로서 활동한다.

우주 절대자가 긴장상태에 현존하심은, 신격 실체와 비신격화 실체 사이의 차이가 조정됨을 의미하는데, 이런 차이는 자유의지를 지닌 동태적{動態的} 신성을 무조건적인 정태적{靜態的} 무한성으로부터 분리할 때 내재적이다.

항상 기억하라: 잠재적 무한성은 절대적이고 영원성에서 분리될 수 없다. 시간 속에서 실제 무한성은 결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

Absolute in contradistinction to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the Universal Absolute is superadditive to both in the encompassment of all absolute potential.

0:11.7 (14.5) 2.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npersonal, extradivine, and undeified. The Unqualified Absolute is therefore devoid of personality, divinity, and all creator prerogatives. Neither fact nor truth, experience nor revelation, philosophy nor absonity are able to penetrate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is Absolute without universe qualification.

0:11.8 (14.6) Let it be made clear that the Unqualified Absolute is a *positive reality* pervading the grand universe and, apparently, extending with equal space presence on out into the force activities and prematerial evolutions of the staggering stretches of the space regions beyond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t a mere negativism of philosophic concept predicated on the assumptions of metaphysical sophistries concerning the universality, dominance, and primacy of the unconditioned and the unqualified. The Unqualified Absolute is a positive universe overcontrol in infinity; this overcontrol is space-force unlimited but is definitely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life, mind, spirit, and personality, and is further conditioned by the will-reactions and purposeful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0:11.9 (14.7) We are convinced that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t an undifferentiated and all-pervading influence comparable either to the pantheistic concepts of metaphysics or to the sometime ether hypothesis of science. The Unqualified Absolute is force unlimited and Deity conditioned, but we do not fully perceive the relation of this Absolute to the spirit realities of the universes.

0:11.10 (14.8) 3. *The Universal Absolute*, we logically deduce, was inevitable in the Universal Father's absolute freewill act of differentiating universe realities into deified and undeified — personalizable and nonpersonalizable — values. The Universal Absolute is the Deity phenomenon indicative of the resolution of the tension created by the freewill act of thus differentiating universe reality, and functions as the associative co-ordinator of these sum totals of existential potentialities.

0:11.11 (15.1) The tension-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signifies the adjustment of differential between deity reality and undeified reality inherent in the separation of the dynamics of freewill divinity from the statics of unqualified infinity.

0:11.12 (15.2) Always remember: Potential infinity is absolute and inseparable from eternity. Actual infinity in time can never be anything but partial and

문에 틀림없이 절대적이지 않으며;뿐만 아니라 무조건적 **신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재하는 무한한 인격도 절대적일 수 없다.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성의 차이가 바로 **우주 절대자**를 영존화 시키며, 그리하여 물질 우주들을 공간에 두는 것을 시공우주에서 가능하게 하고, 또한 시간세계에 유한한 인격체들을 두는 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유한자가 **무한자**와 함께 시공우주에서 공존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실체의 잠재성과 실체의 실재성, **낙원**과 공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을, **우주 절대자**의 연합하는 현존이 아주 완전하게 평형 시키기 때문이다. 연합하는 방법으로, **우주 절대자**는 시_공간 우주에서, 그리고 시_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에서, 무한_이하로 **신격**이 나타나는 우주들에 존재하는, 진보하는 진화적 실체의 지대가 있다는 표시를 성립시킨다.

우주 절대자는, 정적이고_역동적인 **신격**의 잠재성인데, 이 잠재성은 시간 수준에서 유한하고 영원 수준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기능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불가해한 **신격**은, 정적이고 잠재적이며 연합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총괄우주에서 활동하는 지성 인격체들이 관여하다시피, 체험으로 창조하거나 진화하지 않는다.

절대자. 두 **절대자**는--곧 조건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는-- 정신을 지닌 피조물이 관측하는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그 기능이 아주 다르지만,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통합돼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끝까지 이해했을 때, 셋 모두 하나의 **절대자**다. 그들의 기능은 무한 이하의 수준에서는 구별되지만, 무한 속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무언가의 반대로서 또는 어떤 것이든지 부정하는 것으로서 **절대자**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 절대자**를 자체_결정력이 있는, 일종의 범신론적이고 비인격적인 **신격**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우주 인격체에 관한 모든 면에서, **절대자**를 **삼위일체**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격**이 지배한다.

must therefore be nonabsolute; neither can infinity of actual personality be absolute except in unqualified Deity. And it is the differential of infinity potential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Deity Absolute that eternalizes the Universal Absolute, thereby making it cosmically possible to have material universes in space and spiritually possible to have finite personalities in time.

0:11.13 (15.3) The finite can coexist in the cosmos along with the Infinite only because the associativ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so perfectly equalizes the tensions between time and eternity, finity and infinity, reality potential and reality actuality, Paradise and space, man and God. Associatively the Universal Absolute constitutes the identification of the zone of progressing evolutionary reality existent in the time-space, and in the transcended time-space, universes of subinfinite Deity manifestation.

0:11.14 (15.4) The Universal Absolute is the potential of the static-dynamic Deity functionally realizable on time-eternity levels as finite-absolute values and as possible of experiential-existential approach. This incomprehensible aspect of Deity may be static, potential, and associative but is not experientially creative or evolutionary as concerns the intelligent personalities now functioning in the master universe.

0:11.15 (15.5) *The Absolute*. The two Absolutes — qualified and unqualified — while so apparently divergent in function as they may be observed by mind creatures, are perfectly and divinely unified in and by the Universal Absolute. In the last analysis and in the final comprehension all three are one Absolute. On subinfinite levels they ar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but in infinity they are ONE.

0:11.16 (15.6) We never use the term the Absolute as a negation of aught or as a denial of anything. Neither do we regard the Universal Absolute as self-determinative, a sort of pantheistic and impersonal Deity. The Absolute, in all that pertains to universe personality, is strictly Trinity limited and Deity dominated.

12. 삼위일체들

본래의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는 실존적이고 필연적이었다. 시작이_없는 이 **삼위일체**는, 인격 있는 것과 인격 없는 것을 **아버지**의 속박 받지 않는 의지로 차별화한 그 사실에 내재적이었고, 그가 친히 뜻하심으로 이 두 가지 실체를 정신으로 조화시킬 때 실체화 됐다. **하보나**_이후에 생긴 **삼위일체**들은 체험적이다--총괄우주에서 권능과_인격이 나타나는 준절대 수준과 진화 수준의 창조계에 내재적이다.

XII. THE TRINITIES

0:12.1 (15.7) The original and eternal Paradise Trinity is existential and was inevitable. This never-beginning Trinity was inherent in the fact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by the Father's unfettered will and factualized when his personal will co-ordinated these dual realities by mind. The post-Havona Trinities are experiential — are inherent in the creation of two subabsolute and evolutionary levels of power-personality manifestation in the master universe.

낙원 삼위일체는 --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격 합동은-- 실제로 존재론적이지만, 모든 잠재성은 체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성{無限性}을 포함하는 유일한 **신격** 실체가 되며,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이 실제화하는 우주 현상이 발생한다.

첫째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즉 **하보나** 이후에 생긴 **삼위일체**들은 **파생된 신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는데, 그 **신격**들은 실존적 **낙원 삼위일체**가 창조하거나 결말에 이른 실체들이 체험으로 실제화함으로써 진화된다. 피조물의 체험이 유한하고 **창조주**의 체험이 유한절대이기 때문에, 무한한 신성은 커지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강화되고 있다.

삼위일체들은 연관성의 명제{命題}이자, 대등한 **신격** 현현{顯現}의 진상{真相}이다. **삼위일체**의 기능은 **신격** 실체들을 포함하며, **신격** 실체들은 언제나 인격화함으로 실현과 형태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도, 신으로서 불가피한 존재들이다. 이 세 체험적 **신격**은, 실존적 **삼위일체**, 즉 **낙원 삼위일체** 안에 잠재했지만, 이들이 권능을 지닌 인격체로서 우주에 출현한 것은, 권능과 인격체가 있는 우주에서 바로 그들이 체험으로 활동하는 데 일부 의존하고, **하보나** 이후의 **창조주**들 및 **삼위일체**들의 체험적 성취에도 일부 의존한다.

하보나 이후의 두 **삼위일체**, 즉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와 체험적 **절대 삼위일체**는,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우주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이 **신격** 연합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으며, 결국 **지존자신 분**,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 그리고 유한절대 **총괄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인데, 이 **건축가**들은 창조자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독특한 우주 입안자{立案者}들이다. **궁극자 하나님**은, 거의 끝없는 총괄우주의 확장하는 경기장에서, 이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가 통합되는, **신격**이 통합되는 결과로서, 결국 필연적으로 권능을 얻고 인격화할 것이다.

2. **절대 삼위일체**는--곧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지금 실제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성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인격있는 수준과 인격을 초월한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 인격없는 존재들의 경계선에서도 활동하며, **삼위일체**의 보편적 통합은 체험으로 **절대 신격**을 형성할 것이다.

궁극 삼위일체는 완성되는 동안 체험적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절대 삼위일체**가 그렇게 온전히

0:12.2 (15.8) *The Paradise Trinity* — the eternal Deity un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is existential in actuality, but all potentials are experiential. Therefore does this Trinity constitute the only Deity reality embracing infinity, and therefore do there occur the universe phenomena of the actualizat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0:12.3 (15.9) The first and second experiential Trinities, the post-Havona Trinities, cannot be infinite because they embrace *derived Deities*, Deities evolved by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realities created or eventuated by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Infinity of divinity is being ever enriched, if not enlarged, by finity and absonity of creature and Creator experience.

0:12.4 (16.1) Trinities are truths of relationship and facts of co-ordinate Deity manifestation. Trinity functions encompass Deity realities, and Deity realities always seek realization and manifestation in personalization.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even God the Absolute are therefore divine inevitabilities. These three experiential Deities were potential in the existential Trinity, the Paradise Trinity, but their universe emergence as personalities of power is dependent in part on their own experiential functioning in the universes of power and personality and in part on the experiential achievements of the post-Havona Creators and Trinities.

0:12.5 (16.2) The two post-Havona Trinities,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experiential Trinities, are not now fully manifest; they are in process of universe realization. These Deity association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0:12.6 (16.3) 1. *The Ultimate Trinity*, now evolving, will eventually consist of the Supreme Being,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and the absonit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ose unique universe planners who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God the Ultimate will eventually and inevitably powerize and personalize a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unification of this experiential Ultimate Trinity in the expanding arena of the well-nigh limitless master universe.

0:12.7 (16.4) 2. *The Absolute Trinity* —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 now in process of actualization, will consist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unrevealed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This Trinity functions on both personal and superpersonal levels, even to the borders of the nonpersonal, and its unification in universality would experientialize Absolute Deity.

0:12.8 (16.5) The Ultimate Trinity is experientially unifying in completion, but we truly doubt the possibility of such full unification of the Absolute

통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신격**의 삼자일체화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늘_즉시 생각나게 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존자와 궁극자**가 언젠가 출현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아마도 삼자일체됨으로_실제화할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

우주들에 있는 철학자들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즉 실존적이고_체험적인 **삼위일체 무한자**를 가정해 보지만, 이것이 인격화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아마도 이것은 **자존자** 개념의 수준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와 대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근원적 **낙원 삼위일체**의 잠재성은 무한하다.

인정서

완전한 중앙우주와 그 주위를 회전하는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만유의 아버지의** 성품과 그의 **낙원** 동역자들의 본성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어지는 소개서들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안내 받을 것인데, 이 명령은 진리 및 이와 동등한 기본 지식을 계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시되는 주제에 적합한, 인간의 가장 높은 기존 개념에 우리가 우선권{優先權}을 줘야 한다고 지시한다. 우리는 제시되는 개념을 인간 정신이 적절하게 표현한 선례가 없을 때에만, 순수한 계시{啓示}에 의존할 것이다.

신성한 진리를 연속해서 행성에 주는 계시들은, 행성의 지식을 새롭고 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의 일부분으로, 영적 가치를 갖는 가장 높은 현존 개념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우주 동역자들에 관한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 여러 문서의 기초로서, 영적 가치와 우주 의미들을 갖는, 가장 높고 가장 진보된 행성 지식을 대변하는, 1,000개 이상의 인간 개념을 선택했다. **하나님**을_아는 과거와 현재의 필사자들로 부터 수집한 이 인간 개념들이,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지시한 그 진리를 묘사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부적당하지만, **낙원 신격**들의 실체와 신성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초월적인 우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우세한 지식으로 끌어당기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개념들을 첨가할 것이다.

우리에게 배정된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신성과 영원성의 개념을 담은 말을, 필사자 정신의 상징들 속으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단편**{斷片}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의 영**이 인간의 혼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며; 더욱이 우리는, 이

Trinity. Our concept, however, of the eternal Paradise Trinity is an ever-present reminder that Deity trinitization may accomplish what is otherwise nonattainable; hence do we postulate the sometime appearance of the *Supreme-Ultimate* and the possible trinitization-factu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0:12.9 (16.6)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s postulate a *Trinity of Trinities*, an existential-experiential Trinity Infinite, but they are not able to envisage its personalization; possibly it would equvalate to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on the conceptual level of the I AM. But irrespective of all this, the original Paradise Trinity is potentially infinite since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is infinite.

0:12.10 (16.7) Acknowledgment

0:12.11 (16.8) In formulating the succeeding presentations having to do with the portrayal of th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nature of his Paradise associates, together with an attempted description of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and the encircling seven superuniverses, we are to be guided by the mandate of the superuniverse rulers which directs that we shall, in all our efforts to reveal truth and co-ordinate essential knowledge, give preference to the highest existing human concepts pertaining to the subjects to be presented. We may resort to pure revelation only when the concept of presentation has had no adequate previous expression by the human mind.

0:12.12 (17.1) Successive planetary revelations of divine truth invariably embrace the highest existing concepts of spiritual values as a part of the new and enhanced co-ordination of planetary knowledge. Accordingly, in making these presentations about God and his universe associates, we have selected as the basis of these papers more than one thousand human concepts representing the highest and most advanced planetary knowledge of spiritual values and universe meanings. Wherein these human concepts, assembled from the God-knowing mortal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inadequate to portray the truth as we are directed to reveal it, we will unhesitatingly supplement them, for this purpose drawing upon our own superior knowledge of the reality and divinity of the Paradise Deities and their transcendent residential universe.

0:12.13 (17.2) We are fully cognizant of the difficulties of our assignment; we recognize the impossibility of fully translating the language of the concepts of divinity and eternity into the symbols of the language of the finite concepts of the mortal mind. But we know that there dwells within the human mind a fragment of God, and that there sojourns with the human soul the Spirit of Truth; and we

런 영 세력들이, 물질적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가치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주 의미들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_의식하는-- 개인 종교 체험의 계속_진보하는 실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모든 진리를 영적으로 사용하도록, **신성한 현존**의 이 영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안다.

[오르본톤의 한 **신성한 조연자**가 기록했으며, 그는 **낙원 신격**들과 온갖 우주에 관한 진리를 **유란시아**에 묘사하도록 배정된, **연방우주 인격체 단체**의 **우두머리**다.]

further know that these spirit forces conspire to enable material man to grasp the reality of spiritual values and to comprehend the philosophy of universe meanings. But even more certainly we know that these spirits of the Divine Presence are able to assist man in the spiritual appropriation of all truth contributory to the enhancement of the ever-progressing reality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 God-consciousness.

0:12.14 (17.3) [Indited by an Orvonton Divine Counselor, Chief of the Corps of Superuniverse Personalities assigned to portray on Urantia the truth concerning the Paradise Deities and the universe of universes.]

유랜시아 책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편. 만유의 아버지

⇨ 000

유랜시아 책

002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편
만유의 아버지

섹션

소개

1. 아버지의 이름
2. 하나님의 실체
3.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다
4. 하나님의 신비
5.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6. 우주의 인격체
7. 인격 개념의 영적 가치

PAPER 1

THE UNIVERSAL FATHE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ather's Name
2. The Reality of God
3. God is a Universal Spirit
4. The Mystery of God
5.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6. Personality in the Universe
7. Spiritual Value of the Personality Concept

소개

만유{萬有}의 아버지는 창조물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물과 존재의 **제1 근원 및 중심**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자로, 다음에는 통제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유지자{維持者}로 생각하라.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만유의 아버지**에 관한 진리가 인류에게 밝혀지기 시작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당신과 나란히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온갖 하늘을 그곳의 모든 무리와 함께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보존하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들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는 빛으로 옷을 삼아 자신을 두르고, 휘장처럼 하늘들을 밖으로 펼치십니다.” 오직 **만유의 아버지**라는 개념만이—곧 여러 신{神} 대신 한 분 **하나님**만이—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자와 무한한 통제관으로 납득할 수 있게 했다.

무수히 많은 행성 체계는 모두, 다른 여러 유형의 지성 피조물, 즉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며, 역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결국 거주하도록 만들어졌다. 온갖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의 다양한 피조물의 거주지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조

INTRODUCTION

1:0.1 (21.1) THE Universal Father is the God of all creatio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all things and beings. First think of God as a creator, then as a controller, and lastly as an infinite upholder. The truth about the Universal Father had begun to dawn upon mankind when the prophet said: “You, God, are alone; there is none beside you. You have created the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s; you preserve and control them. By the Sons of God were the universes made. The Creator covers him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and stretches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Only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 one God in the place of many gods — enabled mortal man to comprehend the Father as divine creator and infinite controller.

1:0.2 (21.2) The myriads of planetary systems were all made to be eventually inhabited by many different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beings who could know God, receive the divine affection, and love him in return.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the work of God and the dwelling place of his diverse

성하셨으며;우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셨다.”

문명화한 세계들은 모두, 창조물 전체의 영원한 조물주이며 무한한 유지자인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경배 드린다.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수많은 우주에서 **낙원**으로 가는 길고 긴 여행,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영원한 모험인 매혹적인 분투를 시작했다. 시간 세계의 자녀들이 갖는 초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본성을 납득하고,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을_아는 피조물은 오직 한 가지 최상의 열망, 하나의 절실한 욕구를 가졌는데, 즉 **하나님**의 인격이 **낙원**에서, 그리고 최상으로 올바른 그의 우주 구체(球體)에서 완전한 것처럼, 그들이 사는 구체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영원에 거하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선포해 오신 최고 명령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이다. **낙원**의 사자(使者)들은, 이 간곡한 신(神)의 권유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주들을 거쳐서 바깥쪽으로, 심지어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 같은, 그런 동물에서_기원(起源)된 저급한 피조물에게까지 사랑과 자비로 전해 왔다.

신(神)의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라는 이 장엄하고 우주적인 명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분투하는 피조물의 첫째 의무이자 최고의 열망(熱望)이어야만 할 것이다. 신의 완전함을 달성할 이 가능성이,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모든 사람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숙명(宿命)이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무한한 의미에서 완전해지기를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이 행성에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출발해서, 무한한 **하나님**이 필사적 사람을 위해 마련한 고귀하고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또한 그들이 이 운명을 성취할 때, 자아_실현 및 정신 달성에 관련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한 영역에 충만하듯이, 그들은 신성한 완전성에 속하는 자신의 영역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완전함은, 물질 의미에서는 보편적이지 아닐 수 있고, 지적인 파악에서 제한적이거나 영적 체험에서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의지의 신성함, 인격 동기유발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을_자각하는 모든 유한함 측면에서는 최종적이고 완벽하다.

이것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신성한 명령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가치와 진정한 우주 의미에 도달하려는 길고 매혹적인 분투를 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필사적 사람을 계속 독려하고 안쪽으로 이끈다. 우주의 **하나님**을 찾는 이 숭고한 탐색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거주하는 자들의 최상의 모험이다.

creature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formed the earth; he established the universe and created this world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1:0.3 (21.3) The enlightened worlds all recognize and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maker and infinite upholder of all creation. The will creatures of universe upon universe have embarked upon the long, long Paradise journey, the fascinating struggle of the eternal adventure of attaining God the Father. The transcendent goal of the children of time is to find the eternal God, to comprehend the divine nature, to recognize the Universal Father. God-knowing creatures have only one supreme ambition, just one consuming desire, and that is to become, as they are in their spheres, like him as he is in his Paradise perfection of personality and in his universal sphere of righteous supremacy. From the Universal Father who inhabits eternity there has gone forth the supreme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In love and mercy the messengers of Paradise have carried this divine exhortation down through the ages and out through the universes, even to such lowly animal-origin creatures as the human races of Urantia.

1:0.4 (22.1) This magnificent and universal injunction to strive for the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divinity is the first duty, and should be the highest ambition, of all the struggling creature creation of the God of perfection. This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divine perfection is the final and certain destiny of all man's eternal spiritual progress.

1:0.5 (21.2) Urantia mortals can hardly hope to be perfect in the infinite sense, but it is entirely possible for human beings, starting out as they do on this planet, to attain the supernal and divine goal which the infinite God has set for mortal man; and when they do achieve this destiny, they will, in all that pertains to self-realization and mind attainment, be just as replete in their sphere of divine perfection as God himself is in his sphere of infinity and eternity. Such perfection may not be universal in the material sense, unlimited in intellectual grasp, or final in spiritual experience, but it is final and complete in all finite aspects of divinity of will, perfection of personality motivation, and God-consciousness.

1:0.6 (22.3) This is the true meaning of that divine command,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which ever urges mortal man onward and beckons him inward in that long and fascinating struggle for the attainment of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piritual values and true universe meanings. This sublime search for the God of universes is the supreme adventure of the inhabitants of all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1. 아버지의 이름

우주들에 널리 알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중에서, 그를 **제1 근원 및 우주 중심**이라고 칭하는 경우를 가장 자주 접한다. **최초의 아버지**는, 다른 우주들에서, 그리고 같은 우주라도 다른 구역들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여한 이름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개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 **제1 근원 및 우주 중심**은, 이름이 아니라 본성(本性)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자신을 이 **창조주**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를 결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며, **제1 근원 및 중심**과 우리의 인격있는 관계를 인식함에서 생겨난다.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들에서 의지를 지닌 지성적인 피조물에게, 독단적 승인, 형식적 경배, 또는 노예근성의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강요한 적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거주자들은, 스스로--곧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서-- 그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 **창조주**는 물질 피조물의 영적 자유의지에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압하기를 거부한다. 인간의 의지로 **아버지** 뜻을 따르고자 애정 어리게 헌신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극상의 선물이며; 사실, 피조물의 그런 헌신은, 사람이 **낙원 아버지**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선물에 해당한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 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지를 지닌 지성 피조물이 우주들에서 내린 그런 결정은, 사랑으로 가득한 **창조주 아버지**의 본성에게 매우 만족스런, 진정한 경배의 실체를 이룬다.

너희가 위엄 있는 **창조주**를 실제로 발견하고, 내주(內住)하는 신성한 통제관의 현존을 체험하기 시작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을_자각하게 되면, 너희의 교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너희는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너희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될,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세계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우주들에서, **창조주**는 무수한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영적 관계성으로 보면 모든 이름이 같은 의미이지만, 단어와 상징으로 보면, 각각의 이름은 주어진 어떤 영역이든지 피조물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에 대한 경애심의 정도와 깊이를 나타낸다.

온갖 우주의 중심 가까이에서는, **만유의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제1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만한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만유의 아버지**를 지칭

1. THE FATHER'S NAME

1:1.1 (22.4) Of all the names by which God the Father is known throughout the universes, those which designate him as the First Source and the Universe Center are most often encountered. The First Father is known by various names in different universes and in different sectors of the same universe. The names which the creature assigns to the Creator are much dependent on the creature's concept of the Creator. The First Source and Universe Center has never revealed himself by name, only by nature. If we believe that we are the children of this Creator, it is only natural that we should eventually call him Father. But this is the name of our own choosing, and it grows out of the recognition of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2 (22.5) The Universal Father never imposes any form of arbitrary recognition, formal worship, or slavish service upon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e evolutionary inhabitants of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must of themselves — in their own hearts — recognize, love, and voluntarily worship him. The Creator refuses to coerce or compel the submission of the spiritual free wills of his material creatures. The affectionate dedication of the human will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is man's choicest gift to God; in fact, such a consecration of creature will constitutes man's only possible gift of true value to the Paradise Father. In God, man lives, moves, and has his being; there is nothing which man can give to God except this choosing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and such decisions, effected by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constitute the reality of that true worship which is so satisfying to the love-dominated nature of the Creator Father.

1:1.3 (22.6) When you have once become truly God-conscious, after you really discover the majestic Creator and begin to experience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presence of the divine controller, then, in accordance with your enlighten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and method by which the divine Sons reveal God, you will find a name for the Universal Father which will be adequately expressive of your concept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so, on different worlds and in various universes, the Creator becomes known by numerous appellations, in spirit of relationship all meaning the same but, in words and symbols, each name standing for the degree, the depth, of his enthronement in the hearts of his creatures of any given realm.

1:1.4 (23.1) Near the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is generally known by names which may be regarded as meaning the First Source. Farther out in the universes of

하는 용어는 **우주 중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멀리 떨어진 별처럼 빛나는 창조계{創造界}에서는, 너희 지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처럼, 그가 **제1 창조 근원 및 신성한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이 있는 한 성좌{星座}에서는 **하나님을 우주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유지자**로, 그리고 동쪽에서는 **신성한 통제관**이라고 부른다. 그는 또한, **빛들의 아버지, 생명의 선물, 전능하신 분**으로도 명명돼 왔다.

낙원 아들이 증여의 삶을 살았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격있는 관계, 부드러운 애정, 아버지다운 헌신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의 성좌 본부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로서 언급되며,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너희의 지역 체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서는, **아버지들의 아버지, 낙원 아버지, 하보나 아버지**, 그리고 **영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낙원 아들**들의 증여에 관한 계시{啓示}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피조물-**창조주** 연합체의 감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감상적인 호소에 결국 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지성 존재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다운 감정 충동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세계인, 남녀 피조물이 사는 행성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영원한 **하나님**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 너희 행성 **유란시아**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별로 중요치 않으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를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희의 옛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그를 “영존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2.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영 세계에서 근본 실체시며; **하나님**은 정신 영역들에서 진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물질 영역들 전체를 관장하신다. 창조된 모든 지성체에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온갖 우주에게는 영원한 실체의 **제1 근원 및 중심**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도 기계 같지도 않으시다. **최초의 아버지**는, 우주적인 영, 영원한 진리, 무한한 실체, 그리고 아버지 인격체시다.

영원한 **하나님**은, 이상화된 실체 또는 인격화된 우주를 무한히 능가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최상의 열망, 즉 필사자가 추구할 대상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의 잠재된 권능이라는, 어떤 개념에 불과한 분도 아니다. **만유의 아버지**는 자연계의 동의어가 아님은 물론, 의인화{擬人化}된 자연 법칙도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 실체시며, 단순히 최상의 가치에 대한 사람의 전통적 개념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 의미에 대한 심리적 주관점이 아니며,

space, the terms employed to designate the Universal Father more often mean the Universal Center. Still farther out in the starry creation, he is known, as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your local universe, as the First Creative Source and Divine Center. In one near-by constellation God is called the Father of Universes. In another, the Infinite Upholder, and to the east, the Divine Controller. He has also been designated the Father of Lights, the Gift of Life, and the All-powerful One.

1:1.5 (23.2) On those worlds where a Paradise Son has lived a bestowal life, God is generally known by some name indicative of personal relationship, tender affection, and fatherly devotion. On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God is referred to as the Universal Father, and on different planets in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he is variously known as the Father of Fathers, the Paradise Father, the Havona Father, and the Spirit Father. Those who know God through the revelations of th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eventually yield to the sentimental appeal of the touching relationship of the creature-Creator association and refer to God as “our Father.”

1:1.6 (23.3) On a planet of sex creatures, in a world where the impulses of parental emotion are inherent in the hearts of its intelligent beings, the term Father becomes a very expressive and appropriate name for the eternal God. He is best known, most universally acknowledged, on your planet, Urantia, by the name God. The name he is given is of little importance; the significant thing is that you should know him and aspire to be like him. Your prophets of old truly called him “the everlasting God” and referred to him as the one who “inhabits eternity.”

2. THE REALITY OF GOD

1:2.1 (23.4) God is primal reality in the spirit world; God is the source of truth in the mind spheres; God overshadows all throughout the material realms. To all created intelligences God is a personality, and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he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eternal reality. God is neither manlike nor machinelike. The First Father is universal spirit, eternal truth, infinite reality, and father personality.

1:2.2 (23.5) The eternal God is infinitely more than reality idealized or the universe personalized. God is not simply the supreme desire of man, the mortal quest objectified. Neither is God merely a concept, the power-potential of righteousness.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 synonym for nature, neither is he natural law personified. God is a transcendent reality, not merely man's traditional concept of supreme values. God is not a psychological focalization of spiritual meanings,

“사람이 만든 가장 고상한 작품”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개념들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以上}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적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인격 생존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자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하나님 실존의 실체성은 영 **관찰자**가 내주함으로써 인간의 체험 속에서 증명되는데, 이 **관찰자**는 사람의 필사 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낙원**으로부터 보냄 받은, 그리고 영원히 생존하는 불멸의 혼을 진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신성한 현존이다.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이 신성한 **조율사**{調律使}의 임재는, 세 가지 체험 현상으로 드러난다:

1.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知的} 수용력 -- 곧 **하나님**을_자각함.

2.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 충동 -- 곧 **하나님**을_추구함.

3. **하나님**처럼 되고자 갈망하는 인격 -- 곧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는 욕구.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은, 과학 실험으로 또는 논리적 추론의 순전한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인간의 체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논리에 적합하고, 철학적으로 타당하며, 종교에 본질적이고, 인격 생존에 대한 어떤 소망에든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필사자는,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증거를 개인 체험 속에 지닌다. 인간 정신의 **하나님**_자각과, **사고 조율사**라는 **하나님**_현존 사이의 접촉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어떤 설명도 전혀 불가능한데, 이 **조율사**는 **만유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고 필사자 지능에 내주한다.

이론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은 **낙원**과 완전한 중앙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모두, **낙원**의 **창조주 아들**들 단체가 창조하고 조직한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네바돈** 지방우주의 직접 창조자가 아니며; 너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의 **아들 미가엘**의 창조물이다. 비록 진화하는 우주들을 직접 창조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우주들의 여러 보편적 관계를 통제하고, 물질 에너지, 정신 에너지, 및 영적 에너지의 어떤 표현을 통제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낙원** 우주를 직접 창조한 분이며, **영원한 아들**과 공동으로, 다른 모든 인격있는 우주 **창조주**들을 창조한 분이시다.

온갖 물질 우주에 있는 물리 통제관처럼, **제1**

neither is he “the noblest work of man.” God may be any or all of these concepts in the minds of men, but he is more. He is a saving person and a loving Father to all who enjoy spiritual peace on earth, and who crave to experience personality survival in death.

1:2.3 (24.1) The actuality of the existence of God is demonstrated in human experience by the indwelling of the divine presence, the spirit Monitor sent from Paradise to live in the mortal mind of man and there to assist in evolving the immortal soul of eternal survival. The presence of this divine Adjuster in the human mind is disclosed by three experiential phenomena:

1:2.4 (24.2) 1. The intellectual capacity for knowing God — God-consciousness.

1:2.5 (24.3) 2. The spiritual urge to find God — God-seeking.

1:2.6 (24.4) 3. The personality craving to be like God — the wholehearted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1:2.7 (24.5) The existence of God can never be proved by scientific experiment or by the pure reason of logical deduction. God can be realized only in the realms of human experience; nevertheless, the true concept of the reality of God is reasonable to logic, plausible to philosophy, essential to religion, and indispensable to any hope of personality survival.

1:2.8 (24.6) Those who know God have experienced the fact of his presence; such God-knowing mortals hold in their personal experience the only positive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living God which one human being can offer to another. The existence of God is utterly beyond all possibility of demonstration except for the contact between the God-consciousness of the human mind and the God-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 that indwells the mortal intellect and is bestowed upon man as the free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1:2.9 (24.7) In theory you may think of God as the Creator, and he is the personal creator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perfection, b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all created and organized by the Paradise corps of the Creator Sons. The Universal Father is not the personal creator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e universe in which you live is the creation of his Son Michael. Though the Father does not personally create the evolutionary universes, he does control them in many of their universal relationships and in certain of their manifestations of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energies. God the Father is the personal creator of the Paradise universe and, in association with the Eternal Son, the creator of all other personal universe Creators.

1:2.10 (24.8) As a physical controller in the material universe of universes, the First Source and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한 **낙원 섬**의 원형{原型}들 안에서 작용하며, 영원한 **하나님**은 이 절대 인력{引力} 중심을 통하여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물리 수준의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전면통제를 온갖 우주 도처에서 똑같이 행사하신다. 정신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의 신격** 안에서 활동하며;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자녀들의 인격자 안에 현시{顯示}하신다. **낙원**의 동격 **인격자들** 및 **절대자들**과 **제1 근원 및 중심**의 이런 상호관계는, 전체 창조 내내, 그리고 모든 수준의 창조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직접 행위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창조주 아버지**는, 자신의 단편화{斷片化}된 영 현존을 통해서, 피조물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들과 즉각적으로 계속 접촉하신다.

Center functions in the patterns of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and through this absolute gravity center the eternal God exercises cosmic overcontrol of the physical level equally in the central universe and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mind, God functions in the Deity of the Infinite Spirit; as spirit, God is manifest in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and in the persons of the divine children of the Eternal Son. This interrela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ith the co-ordinate Persons and Absolutes of Paradise does not in the least preclude the *direct* personal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out all creation and on all levels thereof. Through the presence of his fragmentized spirit the Creator Father maintains immediate contact with his creature children and his created universes.

3.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우주적인 영적 현존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무한한 영적 실체이며, “주권적인, 영원한, 불멸적인, 볼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의 형상에 따라서”--그가 영원히 현존하는 중앙 거주지로부터 보냄 받은 **신비 관찰자**로 내주하도록-- 너희를 창조하리라 선언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형태와 모습에서도 너희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 존재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재한다.

옛 선각자는, “보라, 그가 내 옆에서 걸어가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며; 또한 그가 지나가도 나는 그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의 장엄한 행위에 대한 물질 증거를 상당히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신성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며, 심지어 인간에 내주하는, 그의 파견된 영 현존도 감지하지 못한다.

만유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심은, 유물론적 장애물과 제한된 영적 재능을 가진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이렇다: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인데, 어떤 필사자도 나를 보고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적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필사자 실존을 유지할 수 없다. 낮은 영 존재 집단 또는 어떤 수준의 물질 인격체든지, 신성한 인격 현존의 영광과 영적 광채에 접근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의 영적 광채는, “어떤 필사적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물질 피조물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빛이다.” 그러나 영화{靈化}된 정신의 신앙-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 그를 봐야 할 필요는 없다.

만유의 아버지의 영 본성은, 그의 공존하는

3. GOD IS A UNIVERSAL SPIRIT

1:3.1 (25.1) “God is spirit.” He is a universal spiritual presence. The Universal Father is an infinite spiritual reality; he is “the sovereign, eternal, immortal, invisible, and only true God.” Even though you are “the offspring of God,” you ought not to think that the Father is like yourselves in form and physique because you are said to be created “in his image” — indwelt by Mystery Monitor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abode of his eternal presence. Spirit beings are real, notwithstanding they are invisible to human eyes; even though they have not flesh and blood.

1:3.2 (25.2) Said the seer of old: “Lo, he goes by me, and I see him not; he passes on also, but I perceive him not.” We may constantly observe the works of God, we may be highly conscious of the material evidences of his majestic conduct, but rarely may we gaze upon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his divinity, not even to behold the presence of his delegated spirit of human indwelling.

1:3.3 (25.3) The Universal Father is not invisible because he is hiding himself away from the lowly creatures of materialistic handicaps and limited spiritual endowments. The situation rather is: “You cannot see my face, for no mortal can see me and live.” No material man could behold the spirit God and preserve his mortal existence. The glory and the spiritual brilliance of the divine personality presence is impossible of approach by the lower groups of spirit beings or by any order of material personalities.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Father’s personal presence is a “light which no mortal man can approach; which no material creature has seen or can see.” But it is not necessary to see God with the eyes of the flesh in order to discern him by the faith-vision of the spiritualized mind.

1:3.4 (25.4) The spirit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자신, 즉 **낙원**의 **영원한 아들**과 충분히 공유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영을 완전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동 인격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공유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아들** 안에서 무조건적이고, **영** 안에서는 보편적이며, 그들 모두 안에서 그리고 그들 모두로 인해서 무한하다.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며; **하나님**은 보편적 인격자이다. 유한 창조계의 인격있는 최상의 실체는 영이며; 인격있는 우주의 궁극 실체는 유한절대 영이다. 오직 무한 수준만 절대적이며, 그런 수준에서만 최종으로, 물질, 정신, 및 영 사이에 하나됨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들에서, 잠재적으로, 물질과 정신과 영에 대한 전면통제관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방대하게 창조한, 의지를 지닌 피조물 인격체들과, 오직 자신의 광범한 인격 회로를 통해서만 직접 관계를 맺지만, (**낙원** 밖에서는) 우주들에 널리 퍼진 **하나님** 뜻인, 오직 자신의 단편화된 실체들 안에서만 접촉이 가능하다.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의 정신에 내주하고, 생존하는 피조물의 불멸하는 혼이 진화하도록 촉진시키는 이 **낙원**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 및 신성이다. 그러나 진화하는 그런 피조물 정신은, 지방우주들에서 기원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로 피조물이 선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초래된 영적달성이라는, 그런 체험적 변화를 이룩함으로 신성한 완전성을 얻어야 한다.

사람이 내적으로 체험할 때, 정신이 물질에 결합된다.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정신은, 필사자의 죽음 이후에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를 조절함에, 그리고 필사 정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능이 점차 영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에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됨에, 생존 기법이 내포돼 있다. 물질 연합체로부터 영 합동에 이르는 인간 정신의 이 진화는, 필사 정신의 잠재적 영 단계를 불멸하는 혼이라는 모론시아 실체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질에 굴종하는 필사 정신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결국 인격 소멸을 겪게 되며; 영에 순응하는 정신은 점점 더 영적이 되고, 궁극적으로 생존시키고 안내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 됨을 이룩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 실존이 생존하고 영원성을 달성하게 돼있다.

나는 **영원세계**에서 왔고, **만유의 아버지**가 현존하시는 곳으로 반복해서 돌아갔었다. 나는 **제1 근원 및 중심인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의 실제성과 인격에 대해서 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동시에 선하고 신성하며 또한 자비로우심을 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이 진리임을 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

is shared fully with his coexistent sel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Both the Father and the Son in like manner share the universal and eternal spirit fully and unreservedly with their conjoint personality co-ordinate, the Infinite Spirit. God's spirit is, in and of himself, absolute; in the Son it is unqualified, in the Spirit, universal, and in and by all of them, infinite.

1:3.5 (25.5) God is a universal spirit; God is the universal person. The supreme personal reality of the finite creation is spirit; the ultimate reality of the personal cosmos is absolute spirit. Only the levels of infinity are absolute, and only on such levels is there finality of oneness between matter, mind, and spirit.

1:3.6 (25.6) In the universes God the Father is, in potential, the overcontroller of matter, mind, and spirit. Only by means of his far-flung personality circuit does God deal directly with the personalities of his vast creation of will creatures, but he is contactable (outside of Paradise) only in the presences of his fragmented entities, the will of God abroad in the universes. This Paradise spirit that indwells the minds of the mortals of time and there fosters the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of the surviving creature is of the nature and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 minds of such evolutionary creatures originate in the local universes and must gain divine perfection by achieving those experiential transformations of spiritual attainment which are the inevitable result of a creature's choosing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7 (26.1) In the inner experience of man, mind is joined to matter. Such material-linked minds cannot survive mortal death. The technique of survival is embraced in those adjustments of the human will and those transformations in the mortal mind whereby such a God-conscious intellect gradually becomes spirit taught and eventually spirit led. This evolution of the human mind from matter association to spirit union results in the transmutation of the potentially spirit phases of the mortal mind into the morontia realities of the immortal soul. Mortal mind subservient to matter is destined to become increasingly material and consequently to suffer eventual personality extinction; mind yielded to spirit is destined to become increasingly spiritual and ultimately to achieve oneness with the surviving and guiding divine spirit and in this way to attain survival and eternity of personality existence.

1:3.8 (26.2) I come forth from the Eternal, and I have repeatedly returned to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 know of the actuality and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I know that, while the great God is absolute, eternal, and infinite, he is also good, divine, and gracious. I know the truth

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두 속성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주에 드러난다.

of the great declarations: "God is spirit" and "God is love," and these two attributes are most completely revealed to the universe in the Eternal Son.

4. 하나님의 신비

무한하게 완전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비롭게 만든다. 또한 하나님의 불가해{不可解}한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신{神}이 필사 정신에 내주하는 현상이다. 만유의 아버지가 시간 세계의 피조물에게 머무는 그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이며; 사람의 정신 속에 신이 현존한다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다.

필사자의 물질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聖殿}"이다. 주권자 창조주 아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의 피조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식의 "문에 서서" "두드리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모든 이에게 들어가기를 기뻐할지라도; 창조주 아들과 그의 필사 피조물 사이에 인격 있는 긴밀한 친교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필사적 사람은, 자기 속에 실제로 거하시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여기 아래에서 인생이 끝나고, 너희 행로를 이 세상의 일시적 형태 속에서 다 마쳤을 때, 너희 육신에서 시련의 여행이 끝날 때, 필사자 장막을 이루던 티끌이 "원래 유래했던 땅으로 돌아 갈" 때; 그때, 내주하던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신성의 한 조각이고 한 부분인 하나님의 단편{斷片}이, 행성의 각 필사 존재 안에 머문다. 소유권으로 보면 아직 네 것이 아니지만, 네가 필사 실존 이후에 생존한다면, 너와 하나 되도록 계획적으로 의도돼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끊임없이 대면하며; 그의 무한한 선{善}, 끝없는 자비, 탁월한 지혜, 뛰어난 성품이라는 진리의 끝없는 장관{壯觀}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음에 당혹하고 있다.

신성한 신비는,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 잠시와 영원 사이, 시_공간 피조물과 우주의 창조주 사이, 물질계와 영계 사이, 사람의 미완성과 낙원 신격의 완성 사이에 존재하는 선천적 차이에 있다.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은, 신성한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특성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수용력이 다 채워질 때까지, 각 피조물 모두에게 어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만유의 아버지는, 온갖 우주에 속한 어느 구체나 어느 세계든지 거기 있는 모든 영 존재와 필사 피조물에게, 그런 영 존재들 및 그런 필사 피조

4. THE MYSTERY OF GOD

1:4.1 (26.3) The infinity of the perfection of God is such that it eternally constitutes him mystery. And the greatest of all the unfathomable mysteries of God is the phenomenon of the divine indwelling of mortal minds. The manner in which the Universal Father sojourns with the creatures of time is the most profound of all universe mysteries; the divine presence in the mind of man is the mystery of mysteries.

1:4.2 (26.4) The physical bodies of mortals are "the temples of God." Notwithstanding that the Sovereign Creator Sons come near the creatures of their inhabited worlds and "draw all men to themselves"; though they "stand at the door" of consciousness "and knock" and delight to come in to all who will "open the doors of their hearts"; although there does exist this intimate personal communion between the Creator Sons and their mortal creatures, nevertheless, mortal men have something from God himself which actually dwells within them; their bodies are the temples thereof.

1:4.3 (26.5) When you are through down here, when your course has been run in temporary form on earth, when your trial trip in the flesh is finished, when the dust that composes the mortal tabernacle "returns to the earth whence it came"; then, it is revealed, the indwelling "Spirit shall return to God who gave it." There sojourns within each mortal being of this planet a fragment of God, a part and parcel of divinity. It is not yet yours by right of possession, but it is designedly intended to be one with you if you survive the mortal existence.

1:4.4 (26.6) We are constantly confronted with this mystery of God; we are nonplused by the increasing unfolding of the endless panorama of the truth of his infinite goodness, endless mercy, matchless wisdom, and superb character.

1:4.5 (26.7) The divine mystery consists in the inherent difference which exists between the finite and the infinite,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the time-space creature and the Universal Creator,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imperfection of man and the perfection of Paradise Deity. The God of universal love unfailingly manifests himself to every one of his creatures up to the fullness of that creature's capacity to spiritually grasp the qualities of divine truth, beauty, and goodness.

1:4.6 (27.1) To every spirit being and to every mortal creature in every sphere and on every world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물이 식별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비롭고 신성한 자아 전체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인격자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떤 자녀가 어느 주어진 시기든지 누리는 신{神}의 현존은, 초물질 세계의 영 실정{實情}을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능력에 따라서만 제한된다.

인간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다. 그러나 물질 계층에 속하는 물리적 정신에게 영 세계의 실체를 쉽게 설명하고자 시도할 때 신비가 나타나는데:이 신비는 너무 미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가 신앙으로 체득하는 것만이 철학적 기적을 성취할 수 있는데, 유한자가 **무한자**를 알아보는 것, 즉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에 속한 진화하는 필사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이다.

5.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의 방대하심, 즉 무한성 때문에 그의 인격을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못 본척하지 않도록 하라. “귀를 계획하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실까? 눈을 조성하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실까?” **만유의 아버지**는 신성한 인격의 극치이며; 모든 창조계 전반에 걸쳐 인격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동시에 인격있으며; 무한한 인격이시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인격자의 무한성으로 인해 모든 물질적이고 유한한 존재의 충분한 납득 범주를 영원히 넘어섬에도, 진정한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정신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어떤 인격보다 그 이상이며; 초월 인격에 대한 가능한 어떤 개념보다 훨씬 크시다. 그러나 신성한 인격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을, 물질 피조물 지성인들과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익한데, 이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기껏해야 인격 관념 및 이상{理想}에 머물기 때문이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해 물질 피조물이 도출해 낼 수 있는 최고 개념이, 신성한 인격에 대한 고양{高揚}된 관념의 영적 이상{理想}에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에 대한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어야만 함을 너희가 잘 알더라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 이하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숨지 않으신다. 많은 계층의 존재가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가 “물질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인격의 광대함과 장엄함은, 진화하는 필사자의 불완전한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는, “자신의 손

reveals all of his gracious and divine self that can be discerned or comprehended by such spirit beings and by such mortal creature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either spiritual or material. The divine presence which any child of the universe enjoys at any given moment is limited only by the capacity of such a creature to receive and to discern the spirit actualities of the supermaterial world.

1:4.7 (27.2) As a reality in human spiritual experience God is not a mystery. But when an attempt is made to make plain the realities of the spirit world to the physical minds of the material order, mystery appears: mysteries so subtle and so profound that only the faith-grasp of the God-knowing mortal can achieve the philosophic miracle of the recognition of the Infinite by the finite, the discernment of the eternal God by the evolving mortals of the material worlds of time and space.

5.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5.1 (27.3) Do not permit the magnitude of God, his infinity, either to obscure or eclipse his personality. “He who planned the ear, shall he not hear? He who formed the eye, shall he not see?” The Universal Father is the acme of divine personality; he is the origin and destiny of personality throughout all creation. God is both infinite and personal; he is an infinite personality. The Father is truly a personality, notwithstanding that the infinity of his person places him forever beyond the full comprehension of material and finite beings.

1:5.2 (27.4) God is much more than a personality as personality is understood by the human mind; he is even far more than any possible concept of a superpersonality. But it is utterly futile to discuss such incomprehensible concepts of divine personality with the minds of material creatures whose maximum concept of the reality of being consists in the idea and ideal of personality. The material creature's highest possible concept of the Universal Creator is embraced within the spiritual ideals of the exalted idea of divine personality. Therefore, although you may know that God must be much more than the human conception of personality, you equally well know that the Universal Father cannot possibly be anything less than an eternal, infinite, true, good, and beautiful personality.

1:5.3 (27.5) God is not hiding from any of his creatures. He is unapproachable to so many orders of beings only because he “dwells in a light which no material creature can approach.” The immensity and grandeur of the divine personality is beyond the grasp of the unperfected mind of

바닥으로 물의 깊이를 재고, 손 뺌으로 우주를 가늠하신다. 지구 궤도를 품으신 이, 하늘로 손을 뻗어 장막을 두르고 그것들을 펼쳐 우주를 만들어서 거기 거하시니 이가 바로 그분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번호에 맞춰 세계들이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 부르는 그분을,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 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음 받은 것들에게 부분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 사실이다. 오늘날, 그리고 너희의 있는 그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 **조물주**를, 그의 복잡적이고 다양한 창조를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들 및 그들의 수많은 부하의 계시와 사역을 통해서도 식별해야 한다.

비록 물질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인격자를 볼 수 없더라도, 그가 한 인격자이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해야만 할 것인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께서 세상의 미숙한 거주자들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진리; 그가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하신다”고 묘사하는 그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애정 어린 무한한 **창조주** 인격을 구성하는 그런 초인적이고 신성한 속성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

(연방우주들의 요원{要員}을 제외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의 아버지이자 지방우주들의 주권자인 **낙원 창조주 아들**들을 통한 경우 이외에, **하나님**은 지방 창조계에서 친히 또는 거주함으로써 드러나신 적이 없다. 피조물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가 **창조주 아들**을 봤을 때 **만유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며; **아버지**를 추구할 때, 그는 **아들**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완성된 영 변형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리고 실제로 **낙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이,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한 본성이 지닌 보편적 절대성의 무조건적 잠재력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들 속에, 모든 면에서 **신성하게** 현존해 계신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다. **미가엘** 계층의 이 **낙원 아들**들은 완전한 인격인데, **빛나는 새벽별**의 인격으로부터, 아래로는 진보하는 동물 진화에 속하는 가장 낮은 인간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우주 인격의 원형{原型}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의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격자가 없다면, 이 방대한 온갖 우주 전역에는 어떤 인격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 장엄한 현존, 초월적 이상{理想}, 그리고 영광스런 영{靈}이심에도, 그가 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

evolutionary mortals. He “measures the waters in the hollow of his hand, measures a universe with the span of his hand. It is he who sits on the circle of the earth,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s them out as a universe to dwell in.” “Lift up your eyes on high and behold who has created all these things, who brings out their worlds by number and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and so it is true that “the invisible things of God are partially understood by the things which are made.” Today, and as you are, you must discern the invisible Maker through his manifold and diverse creation, as well as through the revelation and ministration of his Sons and their numerous subordinates.

1:5.4 (28.1) Even though material mortals cannot see the person of God, they should rejoice in the assurance that he is a person; by faith accept the truth which portrays that the Universal Father so loved the world as to provide for the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of its lowly inhabitants; that he “delights in his children.” God is lacking in none of those superhuman and divine attributes which constitute a perfect, eternal, loving, and infinite Creator personality.

1:5.5 (28.2) In the local creations (excepting the personnel of the superuniverses) God has no personal or residential manifestation aside from the Paradise Creator Sons who are the fathers of the inhabited worlds and the sovereigns of the local universes. If the faith of the creature were perfect, he would assuredly know that when he had seen a Creator Son he had seen the Universal Father; in seeking for the Father, he would not ask nor expect to see other than the Son. Mortal man simply cannot see God until he achieves completed spirit transformation and actually attains Paradise.

1:5.6 (28.3) The natures of the Paradise Creator Sons do not encompass all the unqualified potentials of the universal absoluteness of the infinite nature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but the Universal Father is in every way *divinely* present in the Creator Sons. The Father and his Sons are one. These Paradise Sons of the order of Michael are perfect personalities, even the pattern for all local universe personality from that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down to the lowest human creature of progressing animal evolution.

1:5.7 (28.4) Without God and except for his great and central person, there would be no personality throughout all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God is personality.*

1:5.8 (28.5) Notwithstanding that God is an eternal power, a majestic presence, a transcendent ideal, and a glorious spirit, though he is all these and

더라도, 그럼에도 그는 정말로 그리고 영원하게 어떤 완전한 **창조주**의 인격, 즉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인격자시고, 우리와 친구가 돼주는 분이시며; 한편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너희도 그렇게 알려질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영이고 영적 실체이다.

우리가 우주 전역에 드러난 **만유의 아버지**를 볼 때;그분의 수많은 피조물에 내주하는 그분을 식별할 때;그분의 **주권자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가깝거나 멀거나 여기저기에서 그분의 신성한 현존을 계속 느낄 때,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자. 이 모든 광범한 분배에도, 그분은 여전히 참 인격자시며, 온갖 우주 전반에 흩어져 있는 피조물로 이뤄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와 인격있는 관계를 영구히 유지하신다.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체시라는 관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인류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장되고 더욱 진실된 개념이다. 이성, 지혜, 및 종교 체험 등은 모두 **하나님**이 인격체임을 의미하고 암시하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심지어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도 인격이전(人格以前)이다. 어떤 종교든지 그 진리와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격**의 절대 통일성에 대한 파악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인격있는 **신격** 관념은, 종교가 **하나님**의 통일성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이후에 종교적 성숙도를 재는 척도다.

원시 종교에는 많은 인격있는 신이 등장했고, 이들은 주로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계시가 단언하는데, 그 개념은 과학이 **최초 원인**을 설정해야만 가능하고,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철학 관념에서 일시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이다. 어느 인격자 존재든지, 오직 인격체로서 접근함으로써만 **하나님**의 통일성을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 **제1 근원 및 중심**이 인격체이심을 부인하면, 결국:유물론이나 범신론이나 라는 두 철학적 딜레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격에 대해 숙고할 때, 인격체 개념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물질 신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인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그 오류가, 인간 철학의 양극단에 나타난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인격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니라고 본다. 초인간 유형의 진보하는 인격체는, 정신과 영이 합동하는 가운데 작용한다.

인격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며;오히려 완벽한 표현의 영원성 및 보편성에 나타난, 조화된 무한한 본성 그리고 통합된 신성한 뜻 전체를 대표한다. 인격이란, 최상의 의미에서, 온갖

infinitely more, nonetheless, he is truly and everlastingly a perfect Creator personality, a person who can “know and be known,” who can “love and be loved,” and one who can befriend us; while you can be known, as other humans have been known, as the friend of God. He is a real spirit and a spiritual reality.

1:5.9 (28.6) As we see the Universal Father revealed throughout his universe; as we discern him indwelling his myriads of creatures; as we behold him in the persons of his Sovereign Sons; as we continue to sense his divine presence here and there, near and afar, let us not doubt nor question his personality primacy. Notwithstanding all these far-flung distributions, he remains a true person and everlastingly maintains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countless hosts of his creatures scattered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0 (28.7) The idea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s an enlarged and truer concept of God which has come to mankind chiefly through revelation. Reason, wisdom, and religious experience all infer and imply the personality of God, but they do not altogether validate it. Ev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s prepersonal. The truth and maturity of any relig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its concept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God and to its grasp of the absolute unity of Deity. The idea of a personal Deity becomes, then, the measure of religious maturity after religion has first formulated the concept of the unity of God.

1:5.11 (29.1) Primitive religion had many personal gods, and they were fashioned in the image of man. Revelation affirms the validity of the personality concept of God which is merely possible in the scientific postulate of a First Cause and is only provisionally suggested in the philosophic idea of Universal Unity. Only by personality approach can any person begin to comprehend the unity of God. To deny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leaves one only the choice of two philosophic dilemmas: materialism or pantheism.

1:5.12 (29.2) In the contemplation of Deity, the concept of personality must be divested of the idea of corporeality. A material body is not indispensable to personality in either man or God. The corporeality error is shown in both extremes of human philosophy. In materialism, since man loses his body at death, he ceases to exist as a personality; in pantheism, since God has no body, he is not, therefore, a person. The superhuman type of progressing personality functions in a union of mind and spirit.

1:5.13 (29.3) Personality is not simply an attribute of God; it rather stands for the totality of the coordinated infinite nature and the unified divine will which is exhibited in eternity and universality of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啓示}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식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증대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이 추측하거나 납득하는 것처럼 체험을 획득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영원한 인격 영역에서 그런 계속적인 자아_실현 확장을 누리시는데, 이 확장은 진화하는 세계에 속한 유한한 피조물이 새로운 체험으로 획득하는 것과 유사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획득에 비교될 만하다.

드넓은 우주에서, 신(神)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곳에 있는 영적으로 완벽한 세계들로 올라가려고 모색하는, 불완전한 모든 혼의 인격 투쟁에 **만유의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 때문에, 무조건 절대 완결성이라는 극심한 한계로 인해 고통 받으실 지도 모른다. 온갖 우주 도처에 있는 각 영 존재마다, 그리고 각 필사 피조물마다 갖는 이런 점진적 체험도, 끝없이 신성하게 순환(循環)하는, 중단 없는 자아_실현에 대한 **아버지**의 계속_팽창하는 **신격**_의식의 일부분이 된다.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너희가 승리하는 모든 경우에, 그도 너희 속에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의 인격이전{人格以前}의 신성한 영은 너희의 실제 일부분이다. **낙원 섬**은 온갖 우주의 모든 물질 변형에 반응하며;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계의 모든 영 자극을 포함하며; **공동 행위자**는 팽창하는 시공우주에 대한 정신 표현 전체를 함유한다. **만유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창조계 전체의 모든 실재, 존재, 및 인격체의 팽창하는 정신들과 상승하는 영들의 점진적 분투라는, 개별 체험 전체를 신성하게 의식하면서 만족스럽게 실감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사실인데,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우주의 인격체

인간의 인격은, 신성한 **창조주** 인격이 시_공간에 투사한 형상이요_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조사함으로써는 어떤 실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진짜 본체에 맞춰서 그림자를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과학에서는 원인이고, 철학에서는 관념이며, 종교에서는 한 인격자이고, 더욱이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과학자에게는 원초적 힘이고, 철학자에게는 통일성의 가설(假說)이며, 종교인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사람의 부적당한 개념은, 우주에서 사람의 영적 발전을 꾀함으로써만

perfect expression. Personality, in the supreme sense, is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4 (29.4) God, being eternal, universal, absolute, and infinite, does not grow in knowledge nor increase in wisdom. God does not acquire experience, as finite man might conjecture or comprehend, but he does, within the realms of his own eternal personality, enjoy those continuous expansions of self-realization which are in certain ways comparable to, and analogous with, the acquirement of new experience by the finit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1:5.15 (29.5) The absolute perfection of the infinite God would cause him to suffer the awful limitations of unqualified finality of perfectness were it not a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personality struggle of every imperfect soul in the wide universe who seeks, by divine aid, to ascend to the spiritually perfect worlds on high. This progressive experience of every spirit being and every mortal creature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 part of the Father's ever-expanding Deity-consciousness of the never-ending divine circle of ceaseless self-realization.

1:5.16 (29.6) It is literally true: “In all your afflictions he is afflicted.” “In all your triumphs he triumphs in and with you.” His prepersonal divine spirit is a real part of you. The Isle of Paradise responds to all the physical metamorphos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Eternal Son includes all the spirit impulses of all creation; the Conjoint Actor encompasses all the mind expression of the expanding cosmos. The Universal Father realizes in the fullness of the divine consciousness all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progressive struggles of the expanding minds and the ascending spirits of every entity, being, and personality of the whole evolutionary creation of time and space. And all this is literally true, for “in Him we all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6. PERSONALITY IN THE UNIVERSE

1:6.1 (29.7) Human personality is the time-space image-shadow cast by the divine Creator personality. And no actuality can ever be adequately comprehended by an examination of its shadow. Shadows should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true substance.

1:6.2 (30.1) God is to science a cause, to philosophy an idea, to religion a person, even the loving heavenly Father. God is to the scientist a primal force, to the philosopher a hypothesis of unity, to the religionist a living spiritual experience. Man's inadequat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can be improved only by man's

향상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들이, **낙원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에 마침내 도달할 때에야, 진정으로 적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해하는 인격에 대한 관점이 정반대임을 결코 잊지 마라. 사람은 유한에서 무한을 바라보면서 인격을 판단하고 납득하며;**하나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바라보신다. 사람은 가장 낮은 유형의 인격을 갖고 있으며;**하나님**은 최고의 인격, 심지어 지존적이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인격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신(神)의 인격에 대한 더 나은 개념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증진된 관념이 출현하기를, 특히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증여 생애를 살았을 때의 인간의 인격 및 신의 인격 둘 다에 대한 증진된 계시가 출현하기를,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한다.

필사 정신에 내주하는 인격이전의 신성한 영은, 바로 그 현존 속에 영이 실제로 실존한다는 타당한 증거를 내포하고 있지만, 신의 인격이라는 개념은, 다만 개인의 진정한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통찰력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모든 인격자는, 인간적이든지 신성하든지, 그 인격자의 외부 반응 또는 물질 현존과는 매우 다르게 알려지고 납득될 수 있다.

두 인격자 사이의 우호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유사성과 영적 일치가 필수적이며;사랑하는 인격체는, 사랑 없는 인격자에게 자신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다. 신의 인격을 알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람의 인격 재능 전체가 전적으로 그 노력에 투입돼야 하며;열성 없는 부분적인 헌신은 헛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더 철저히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고 동료가 지닌 인격의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원본(原本) 인격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간은, 더 진지하게 **원본 인격체**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견해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체험은, 모든 인간적 논쟁을 뛰어넘으며, 단순한 지적 논리로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묘사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교화{教化}시키고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다.

우주를 알 수 있다고, 즉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곧 그 우주를 정신이 만들었고 인격체가 관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정신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이든지 초인적이든지, 그들의 정신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사람의 인격체가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 신성한 정신과 실제 인격체가 감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영--곧 영 인격체--이시며;사람 역시 영--곧 잠재적인 영 인격체--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동안, 이 잠재적 영 인격체의 충분한 실현을 달성했으며;그러므로 **아버지** 뜻

spiritual progress in the universe and will become truly adequate only when the pilgrims of time and space finally attain the divine embrace of the living God on Paradise.

1:6.3 (30.2) Never lose sight of the antipodal viewpoints of personality as it is conceived by God and man. Man views and comprehends personality, looking from the finite to the infinite; God looks from the infinite to the finite. Man possesses the lowest type of personality; God, the highest, even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Therefore did the better concepts of the divine personality have patiently to await the appearance of improved ideas of human personality, especially the enhanced revelation of both human and divine personality in the Urantian bestowal life of Michael, the Creator Son.

1:6.4 (30.3) The prepersonal divine spirit which indwells the mortal mind carries, in its very presence, the valid proof of its actual existence, but the concept of the divine personality can be grasped only by the spiritual insight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Any person, human or divine, may be known and comprehended quite apart from the external reactions or the material presence of that person.

1:6.5 (30.4) Some degree of moral affinity and spiritual harmony is essential to friendship between two persons; a loving personality can hardly reveal himself to a loveless person. Even to approach the knowing of a divine personality, all of man's personality endowments must be wholly consecrated to the effort; halfhearted, partial devotion will be unavailing.

1:6.6 (30.5) The more completely man understands himself and appreciates the personality values of his fellows, the more he will crave to know the Original Personality, and the more earnestly such a God-knowing human will strive to become like the Original Personality. You can argue over opinions about God, but experience with him and in him exists above and beyond all human controversy and mere intellectual logic. The God-knowing man describes his spiritual experiences, not to convince unbelievers, but for the edification and mutual satisfaction of believers.

1:6.7 (30.6) To assume that the universe can be known, that it is intelligible, is to assume that the universe is mind made and personality managed. Man's mind can only perceive the mind phenomena of other minds, be they human or superhuman. If man's personality can experience the universe, there is a divine mind and an actual personality somewhere concealed in that universe.

1:6.8 (30.7) God is spirit — spirit personality; man is also a spirit — potential spirit personality. Jesus of Nazareth attained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otential of spirit personality in human experience;

을 성취하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낸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이 오직 실제 종교체험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더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 생애에서 실질적으로 인간 체험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 실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영감을 받는다.

therefore his life of achieving the Father's will becomes man's most real and ideal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Even though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can be grasped only in actual religious experience, in Jesus' earth life we are inspired by the perfect demonstration of such a realization and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a truly human experience.

7. 인격 개념의 영적 가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인격있는 **신격**을--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했다. **신격**이 인격체라는 개념은, 친교를 촉진시키며; 지성적 경배를 장려하며; 신선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상호작용은 인격없는 사물들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지만, 친교는 그렇지 못하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교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처럼, 양측이 인격자가 아니라면 결코 향유될 수 없다. 비록 인격있는 이 교류가 바로 **그 사 고 조율사** 같은 비인격{非人格} 실재의 현존으로 인해 크게 촉진될 수 있더라도, 오직 인격체들만이 서로 친하게 사귄 수 있다.

한 방울의 물이 대양과 하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합동을 이루지는 못한다. 사람은 점진적인 상호간의 영적 교류로, 인격있는 **하나님**과 인격 상호교감으로, 신성한 뜻과 완전하고 지성적인 일치를 통해서, 신성한 본성을 점점 더 획득함으로써 신과의 연합을 달성한다. 이런 탁월한 관계는 오직 인격체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다.

진리 개념은 인격체와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고, 미{美} 개념은 인격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신{神}이 선하다는 개념은 오직 인격체에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인격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다. 미와 진리가, 인격있는 **하나님**, 즉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속성이 아니라면, 이것들조차 살아남을 소망이 없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불변하며 전능하고 완벽하면서, 동시에 계속 변화하고 외견상 자연법칙에 제한되는 우주, 상대적 불완전성에서 계속 진화하는 우주에 둘러 싸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및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에도, 인격체의 정체성과 의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 논리, 또는 철학이 아니라, 인격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점차 부합하는 각자의 체험으로만 파악된다. 과학 또는 철학뿐 아니라 신학{神學}조차, **하나님**의 인격을 확인시켜줄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앙 아들이 몸소 체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격을 실제로 영적으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

7. SPIRITUAL VALUE OF THE PERSONALITY CONCEPT

1:7.1 (31.1) When Jesus talked about “the living God,” he referred to a personal Deity — the Father in heaven.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Deity facilitates fellowship; it favors intelligent worship; it promotes refreshing trustfulness. Interactions can be had between nonpersonal things, but not fellowship. The fellowship relation of father and son, as between God and man, cannot be enjoyed unless both are persons. Only personalities can commune with each other, albeit this personal communion may be greatly facilitated by the presence of just such an impersonal entity as the Thought Adjuster.

1:7.2 (31.2) Man does not achieve union with God as a drop of water might find unity with the ocean. Man attains divine union by progressive reciprocal spiritual communion, by personality intercourse with the personal God, by increasingly attaining the divine nature through wholehearted and intelligent conformity to the divine will. Such a sublime relationship can exist only between personalities.

1:7.3 (31.3) The concept of truth might possibly be entertained apart from personality, the concept of beauty may exist without personality, but the concept of divine goodness is understandable only in relation to personality. Only a *person* can love and be loved. Even beauty and truth would be divorced from survival hope if they were not attributes of a personal God, a loving Father.

1:7.4 (31.4) We cannot fully understand how God can be primal, changeless, all-powerful, and perfect, and at the same time be surrounded by an ever-changing and apparently law-limited universe, an evolving universe of relative imperfections. But we can *know* such a truth in our own personal experience since we all maintain identity of personality and unity of will in spite of the constant changing of both ourselves and our environment.

1:7.5 (31.5) Ultimate universe reality cannot be grasped by mathematics, logic, or philosophy, only by personal experience in progressive conformity to the divine will of a personal God. Neither science, philosophy, nor theology can validate the personality of God. Only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faith sons of the heavenly Father can effect

우주 인격체의 상위 개념은:정체성, 자아_의식, 자아_의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낼 가능성 등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런 특질은 더 나아가, **낙원 신격**들의 여러 인격체 연합에 존재하는 것 같은, 다른 동등한 인격체들과의 친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연합의 절대 통일성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신성{神性}은, 나눌 수 없음, 즉 하나 됨으로 알려지게 된다. “**주{主} 하나님**은 **하나**시다.” 인격이 나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필사적 사람의 마음 속에 살도록 중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인격이 분화될 수 없음이, 필사 아들과 딸을 낳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통일성 개념과 관련된 이 불가분성{不可分性} 개념은, **궁극 신격**이 시간과 공간 양쪽 다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 중에서 어떤 것도 결코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정신,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영을 무조건 초월하는 그 무한성이다.

낙원 삼위일체라는 실상은, 결코 신{神}의 통일성이라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낙원 신격**의 세 인격체는, 모든 우주 실체 반응과 모든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영원한 이 세 인격자도, **신격**의 불가분성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우주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필사 정신에게 분명하게 마음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나는 충분히 자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실망할 필요 없으며; **낙원** 존재들로 구성된 내 집단에 속한 높은 인격체들에게조차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명확하지 못하다. **낙원**을 향한 오랜 기간에 걸친 필사자 상승 시기들이 이어지는 동안, 너희 정신이 점진적으로 영성화{靈性化} 됨에 따라서, **신격**과 관련된 이 심오한 진리가 점점 분명해질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

[**네바돈** 지방우주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직무를 거론해야 하는, 앞으로 이어질 본 계시의 일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일곱째 연방우주 본부인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배정한 천상의 인격체 집단의 일원{一員}인, 한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 기술하는 이 문서를 후원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어떤 인간거주 세계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 가능한 정보의 최고 근원을 내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서 **신성한 조연자**로 일해 왔었고, 오랫동안 만유의 중심인 **낙원**에 거주했었다. 나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 바로 앞에 머무는 최상의 기쁨을 여러 번 누려왔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나는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묘사하며;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the actual spiritual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1:7.6 (31.6) The higher concepts of universe personality imply: identity, self-consciousness, self-will, and possibility for self-revelation. And these characteristics further imply fellowship with other and equal personalities, such as exists in the personality associations of the Paradise Deities. And the absolute unity of these associations is so perfect that divinity becomes known by indivisibility, by oneness. “The Lord God is *one*.” Indivisibility of personality does not interfere with God’s bestowing his spirit to live in the hearts of mortal men. Indivisibility of a human father’s personality does not prevent the reproduction of mortal sons and daughters.

1:7.7 (31.7) This concept of indivisibility in association with the concept of unity implies transcendence of both time and space by the Ultimacy of Deity; therefore neither space nor time can be absolute or infinit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at infinity who unqualifiedly transcends all mind, all matter, and all spirit.

1:7.8 (31.8) The fact of the Paradise Trinity in no manner violates the truth of the divine unity. The three personalities of Paradise Deity are, in all universe reality reactions and in all creature relations, as one. Neither does the existence of these three eternal persons violate the truth of the indivisibility of Deity. I am fully aware that I have at my command no language adequate to make clear to the mortal mind how these universe problems appear to us. But you should not become discouraged; not all of these things are wholly clear to even the high personalities belonging to my group of Paradise beings. Ever bear in mind that these profound truths pertaining to Deity will increasingly clarify as your minds become progressively spiritualized during the successive epochs of the long mortal ascent to Paradise.

1:7.9 (32.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a member of a group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signed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o supervise those portions of this forthcoming revelation which have to do with affairs beyond the borders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 am commissioned to sponsor those papers portraying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God because I represent the highest source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such a purpose on any inhabited world. I have served as a Divine Counselor in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and have long resided at the Paradise center of all things. Many times have I enjoyed the supreme pleasure of a sojourn in the immediat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 portray the reality and truth of the Father’s nature and attributes with

unchallengeable authority; I know whereof I
speak.]

제2편. 하나님의 본성

⇨ 001

유랜시아 책

003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편
하나님의 본성

섹션

소개

1. 하나님의 무한성
2.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3. 응보와 정의
4. 신성한 자비
5. 하나님의 사랑
6. 하나님의 선하심
7.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PAPER 2

THE NATURE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Infinity of God
2. The Father's Eternal Perfection
3. Justice and Righteousness
4. The Divine Mercy
5. The Love of God
6. The Goodness of God
7. Divine Truth and Beauty

소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 원초적이고 무한한 인격체에 대한 인간의 관념과 이상{理想}에 포함돼 있는 한, **신격**의 성품을 구성하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특질을 연구하도록 용인될 것이고, 유익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본성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자신의 다양한 교훈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은 자신의 훌륭한 필사자 생애에서 보여줬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낙원 창조주**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경외한다면, 신성한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본성은 최상의 관념이 계시된 데서 연구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은 숭고한 이상{理想}을 묘사한 것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신성한 본성에 대한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계몽적이고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성{神性}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기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여준 종교적 삶을 납득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미가엘**의 육신화{肉身化}된 생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근간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는 신의 본성에 관한 어떤 관념과 이상{理想}을 인간 언어 상징 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

INTRODUCTION

2:0.1 (33:1) INASMUCH as man's highest possible concept of God is embraced within the human idea and ideal of a primal and infinite personality, it is permissible, and may prove helpful, to study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divine nature which constitute the character of Deity. The nature of God can best be understood by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ch Michael of Nebadon unfolded in his manifold teachings and in his superb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divine nature can also be better understood by man if he regards himself as a child of God and looks up to the Paradise Creator as a true spiritual Father.

2:0.2 (33:2) The nature of God can be studied in a revelation of supreme ideas, the divine character can be envisaged as a portrayal of supernal ideals, but the most enlightening and spiritually edifying of all revelations of the divine nature is to be found in the comprehension of the religious life of Jesus of Nazareth, both before and after his attainment of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If the incarnated life of Michael is taken as the background of the revelation of God to man, we may attempt to put in human word symbols certain ideas and ideals concerning the divine nature which may possibly

관념과 이상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본성과 성품에 관한 인간 개념을 더 확실하게 조명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할지도 모른다.

인간의 **하나님** 개념을 확장시키고 영성화{靈性化} 시키려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필사 정신이 갖는 수용력의 한계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 받는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가치를 묘사하고, 유한세계, 즉 사람의 필사 정신에게 영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애쓸 때, 설명하고 비교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제한되고 재료가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임무 이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조물사**가 필사 정신에 내주하고 **창조주 아들**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혀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개념의 확장을 도와주기 위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신성한 영{靈}의 현존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의 정신 속에 더 묘사하도록 시도하라는, 내게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기에 기꺼이 임한다.

1.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자**와 접하지만,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신성한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예지력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다.” **아버지**의 현존에서 나오는 빛은, 그의 비천한 피조물에게는 그가 “질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눈멀게 하는 빛이다. 그의 생각과 계획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일을 수없이 많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는 그를 납득하지 못하고, 그의 연세가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과연 땅에 거하시겠는가? 보라, 하늘과(곧 우주와) 온갖 하늘도(곧 온갖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의 지나간 행적은 얼마나 찾아내기 어려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무한한 **아버지**시고, 또한 신실한 **창조주**시다.” “신성한 **창조주**는 또한 **우주 감독자**, 즉 혼들의 근원인 동시에 운명이다. 그는 **최상급 혼**이며, **근본 정신**이며 모든 창조계의 **무제한 영**이다.” “위대한 **통제관**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는 엄위함과 영광으로 찬란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미움이 전혀 없다.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하며, 풍성하시다.” “만유의 숭고한 **조상**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심오하고 불가해한 분이신가!” “**무한자**는 자신을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나시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며, 선{善}하고 완전한 모든 목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영원한 **창조주**는 원인들의 원인이다.”

contribute to a further illumination and unification of the human concept of the nature and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2:0.3 (33.3) In all our efforts to enlarge and spiritualize the human concept of God, we are tremendously handicapped by the limited capacity of the mortal mind. We are also seriously handicapped in the execution of our assignment by the limitations of language and by the poverty of material which can be utilized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or comparison in our efforts to portray divine values and to present spiritual meanings to the finite, mortal mind of man. All our efforts to enlarge the human concept of God would be well-nigh futile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mortal mind is indwelt by the bestowed Adjus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is pervaded by the Truth Spirit of the Creator Son. Depending, therefore, on the presence of these divine spirits within the heart of man for assistance in the enlargement of the concept of God, I cheerfully undertake the execution of my mandate to attempt the further portrayal of the nature of God to the mind of man.

1. THE INFINITY OF GOD

2:1.1 (33.4) “Touching the Infinite, we cannot find him out. The divine footsteps are not known.” “His understanding is infinite an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The blinding light of the Father’s presence is such that to his lowly creatures he apparently “dwells in the thick darkness.” Not only are his thoughts and plans unsearchable, but “he does great and marvelous things without number.” “God is great; we comprehend him not, neither can the number of his years be searched o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Behold, the heaven (universe) and the heaven of heavens (universe of universes) cannot contain him.”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his ways past finding out!”

2:1.2 (34.1) “There is but one God, the infinite Father, who is also a faithful Creator.” “The divine Creator is also the Universal Disposer, the source and destiny of souls. He is the Supreme Soul, the Primal Mind, and the Unlimited Spirit of all creation.” “The great Controller makes no mistakes. He is resplendent in majesty and glory.” “The Creator God is wholly devoid of fear and enmity. He is immortal, eternal, self-existent, divine, and bountiful.” “How pure and beautiful, how deep and unfathomable is the supernal Ancestor of all things!” “The Infinite is most excellent in that he imparts himself to men.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ather of every good and perfect purpos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eternal Creator is the cause of causes.”

아버지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인격이 무한히 엄청나게 현시{顯示}함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무한성과 영원성 양쪽을 무조건 스스로 의식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완전성과 능력을 충분히 아신다. **아버지**는, 신성한 협조자들을 제외하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에 대한 완벽하고 적절하며 완성된 평가를 체험하는 존재다.

아버지는, 총괄우주의 다양한 구역에서, **아버지** 자신에 대한 다른 요구가 때때로 바뀔 때 따라, 그런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실하게 충족시킨다. 위대한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자신의 모든 완전한 근본 속성을 무한히 자아 의식하신다. **하나님**은 시공우주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며; 우주를 실험하는 이도 아니다. **우주 주권자들**은 모험에 가담할 수 있으며; **성좌 아버지들**은 실험할 수 있으며; 체계 우두머리들은 실습할 수 있지만; **만유의 아버지**는, 시작할 때 그 끝을 내다보시고,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그의 방대한 영토에 속하는 모든 우주에 있는 각 세계, 체계, 및 성좌에 속한 모든 권속의 모든 실험과 모험을 실제로 포용하고 납득하신다.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시공우주 사건이든지 놀라운 것이 못되며; **하나님**은 영원성 궤도에 거하신다. 그에게는 시대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가 없으며; 모든 시간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든지 현재다. 그는 위대하며 유일한 **자존자**{自存者}시다.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속성에서 절대로 무한하고 무조건 무한하시며; 바로 이 사실이, 그 자체로, 유한한 물질 존재 및 기타 저급하게 창조된 지성체들과 직접 친히 의사소통할 수 없도록, 자신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인격 속에 규정돼 온, 여러 계층의 피조물과 접촉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그는 신성에서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성 인종들의 바로 그 삶과 피의 본성에 종종 참여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고 너희와 하나 되며; 그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미가엘**의 증여에서 나타났듯이 사람이 되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바뀌 불릴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급한 기원을 갖는 물질 존재에게 접근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하는, 스랍 무리 및 다른 천상의 다양한 지성체 계층이다. 그리고 셋째로, **유란시아**의 인간 같은 그런 존재에 내주하도록 보냄 받은, 예고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보냄 받은 위대한 **하나님** 자신의 실제 선물인, 비인격 **신비 관찰자들**, 즉 **사고 조율사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意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거나 그것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는, 그런 필사자의 비천한 정신에 끝없이 풍부하게 은혜를 베풀고 내주하기

2:1.3 (34.2) Notwithstanding the infinity of the stupendous manifestations of the Father's eternal and universal personality, he is unqualifiedly self-conscious of both his infinity and eternity; likewise he knows fully his perfection and power. He is the only being in the universe, aside from his divine co-ordinates, who experiences a perfect, proper, and complete appraisal of himself.

2:1.4 (34.3) The Father constantly and unfailingly meets the need of the differential of demand for himself as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in various sections of his master universe. The great God knows and understands himself; he is infinitely self-conscious of all his primal attributes of perfection. God is not a cosmic accident; neither is he a universe experimenter. The Universe Sovereigns may engage in adventure; the Constellation Fathers may experiment; the system heads may practice; but the Universal Father se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his divine plan and eternal purpose actually embrace and comprehend all the experiments and all the adventures of all his subordinates in every world, system, and constellation in every universe of his vast domains.

2:1.5 (34.4) No thing is new to God, and no cosmic event ever comes as a surprise; he inhabits the circle of eternity. He is without beginning or end of days. To God there is no past, present, or future; all time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He is the great and only I AM.

2:1.6 (34.5) The Universal Father is absolutely and without qualification infinite in all his attributes; and this fact, in and of itself, automatically shuts him off from all direct personal communication with finite material beings and other lowly created intelligences.

2:1.7 (34.6) And all this necessitates such arrangements for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his manifold creatures as have been ordained, first, i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Sons of God, who, although perfect in divinity, also often partake of the nature of the very flesh and blood of the planetary races, becoming one of you and one with you; thus, as it were, God becomes man, as occurred in the bestowal of Michael, who was called interchangeably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And second, there ar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various orders of the seraphic hosts and other celestial intelligences who draw near to the material beings of lowly origin and in so many ways minister to them and serve them. And third, there are the impersonal Mystery Monitors, Thought Adjusters, the actual gift of the great God himself sent to indwell such as the humans of Urantia, sent without announcement and without explanation. In endless profusion they descend from the heights of glory to grace and indwell the humble minds of

위해, 영광스런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낙원 아버지는, 이런 방법 및 기타 여러 방법, 즉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제한된 이해력을 훨씬 넘어서는 방법을 통해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낮추시며, 피조 자녀의 유한한 정신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무한성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키고 희석시키며 약화시키신다. 그리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점차적으로 점점 덜 절대적인 일련의 인격 분배를 통해, 광범한 우주의 많은 영역에 속한 다양한 지성체와 긴밀한 접촉을 누리실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근원이시라는 사실 및 실체를 조금도 손상시킴 없이, 이 모든 것을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며, 또한 영원토록 계속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납득하기 어렵긴 해도,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또는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런 일은 절대로 진실이다.

최초 아버지의 계획이 무한하고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한한 존재든지, 이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납득하기는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사적 사람은, 우주 진보라는 연속되는 피조물 상승 계획 수준들에서 그 결실과정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목적이 드러날 때, 오직 가끔씩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얼핏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이 무한성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더라도, 무한하신 **아버지**는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자녀든지, 그 전체 한계성을 가장 분명하고 충분하게 납득하고, 사랑스럽게 감싸신다.

아버지는 신성 및 영원성을 수많은 높은 **낙원** 존재와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무한성과 그에 따른 우주의 탁월성을, **낙원 삼위일체**에 속한 협조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지 충분하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 인격의 무한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체 유한 인격을 포함하며;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누린다”고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리다--말 그대로 진리다.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순수한 **신격**의 그 단편(斷片)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즉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무한성의 일부이다.

2.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너희의 옛 선지자들도,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순환 본성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글자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현존하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절대적 위엄과 영원한 위대성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생명을 지니시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대들 내내 “모든

those mortals who possess the capacity for God-consciousness or the potential therefor.

2.1.8 (35.1) In these ways and in many others, in ways unknown to you and utterly beyond finite comprehension, does the Paradise Father lovingly and willingly downstep and otherwise modify, dilute, and attenuate his infinity in order that he may be able to draw nearer the finite minds of his creature children. And so, through a series of personality distributions which are diminishingly absolute, the infinite Father is enabled to enjoy close contact with the diverse intelligences of the many realms of his far-flung universe.

2.1.9 (35.2) All this he has done and now does, and evermore will continue to do, without in the least detracting from the fact and reality of his infinity, eternity, and primacy. And these things are absolutely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their comprehension, the mystery in which they are enshrouded, or the impossibility of their being fully understood by creatures such as dwell on Urantia.

2.1.10 (35.3) Because the First Father is infinite in his plans and eternal in his purposes, it is inherently impossible for any finite being ever to grasp or comprehend these divine plans and purposes in their fullness. Mortal man can glimpse the Father's purposes only now and then, here and there, as they are revealed in relation to the outworking of the plan of creature ascension on its successive levels of universe progression. Though man cannot encompass the significance of infinity, the infinite Father does most certainly fully comprehend and lovingly embrace all the finity of all his children in all universes.

2.1.11 (35.4) Divinity and eternity the Father shares with large numbers of the higher Paradise beings, but we question whether infinity and consequent universal primacy is fully shared with any save his co-ordinate associates of the Paradise Trinity. Infinity of personality must, perforce, embrace all finitude of personality; hence the truth — literal truth — of the teaching which declares that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That fragment of the pure Deity of the Universal Father which indwells mortal man is a part of the inf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the Father of Fathers.

2. THE FATHER'S ETERNAL PERFECTION

2.2.1 (35.5) Even your olden prophets understood the eternal, never-beginning, never-ending, circular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iterally and eternally present in his universe of universes. He inhabits the present moment with all his absolute majesty and eternal greatnes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and this life is eternal life.”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다. 신{神}의 완전무결 하심 속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主}이며; 변하지 않는다.” 온갖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들의 **아버지**이심 뿐만 아니라, 행성 간 직무에 대한 그의 활동에서 “어떤 변덕스러움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심” 또한 드러낸다. 그는 “시작 지점에서 끝을 선포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 안에서 의도했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내 방침이 지속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제1 근원 및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아버지의 명령은 최종적으로 완결되고 완전하게 충만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할 것이며;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줄일 수 없다.”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원래 지혜 및 완전한 목적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계획은 확고하고, 그의 방침은 변경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는 신성하고 오류가 없다. “그의 앞에서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신성의 완전함과 영원성의 장엄함은, 필사적 사람의 제한된 정신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영구히 초월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응은, 영원한 목적을 이행하실 때, 피조된 지성체의 변화하는 사고방식과 바뀌는 정신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외견상 그리고 표면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표면 아래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시{顯示} 아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구적인 계획이 여전히 있다.

바깥 우주들에서는, 완전성은 부득이 상대적 용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특히 **낙원**에서는, 완전성이 희석되지 않으며; 어떤 국면{局面}들에서는 절대적이기까지 하다. **삼위일체**의 현시는 신성한 완전성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지만, 그것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근본 완전성은, 그가 의로우시다고 가정함에서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성한 본성이 천천적으로 완전히 선하심에 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비되고 완전하다. 그의 의로운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간 세계에 살아있는 실재에 대한 전체 기획은, **낙원**에서 **아버지**의 완전성을 함께 체험하는 고귀한 운명에 이르기까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상승시키는 신성한 목적에 중심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_중심적이지 않고 자기_충족적이지도 않으며; 광대한 온갖 우주의 자아_의식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하게 완전하신데, 몸소 체험함으로써 불완전성을 개인적으로 아실 수는 없지만, 진화 우주에 속한 모든 투쟁하는 피조물

Throughout the eternal ages it has been the Father who “gives to all life.” There is infinite perfection in the divine integrity. “I am the Lord; I change not.” Our knowledg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discloses not only that he is the Father of lights, but also that in his conduct of interplanetary affairs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He “declar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He says: “My counsel shall stand; I will do all my pleasures”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I purposed in my Son.” Thus are the plans and purpos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like himself: eternal, perfect, and forever changeless.

2.2.2 (35.6) There is finality of completeness and perfection of repleteness in the mandates of the Father. “Whatsoever God does, it shall be forever; nothing can be added to it nor anything taken from it.” The Universal Father does not repent of his original purposes of wisdom and perfection. His plans are steadfast, his counsel immutable, while his acts are divine and infallible. “A thousand years in his sight are but as yesterday when it is past and as a watch in the night.” The perfection of divinity and the magnitude of eternity are forever beyond the full grasp of the circumscribed mind of mortal man.

2.2.3 (36.1) The reactions of a changeless God, in the execution of his eternal purpose, may seem t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attitude and the shifting minds of his created intelligences; that is, they may apparently and superficially vary; but underneath the surface and beneath all outward manifestations, there is still present the changeless purpose, the everlasting plan, of the eternal God.

2.2.4 (36.2) Out in the universes, perfection must necessarily be a relative term, but in the central universe and especially on Paradise, perfection is undiluted; in certain phases it is even absolute. Trinity manifestations vary the exhibition of the divine perfection but do not attenuate it.

2.2.5 (36.3) God’s primal perfection consists not in an assumed righteousness but rather in the inherent perfection of the goodness of his divine nature. He is final, complete, and perfect. There is no thing lacking in the beauty and perfection of his righteous character. And the whole scheme of living existences on the worlds of space is centered in the divine purpose of elevating all will creatures to the high destiny of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 Father’s Paradise perfection. God is neither self-centered nor self-contained; he never ceases to bestow himself upon all self-conscious creatures of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2.2.6 (36.4) God is eternally and infinitely perfect, he cannot personally know imperfection as his own experience, but he does share the consciousness

의 불완전함을 모든 **낙원 창조주 아들**들이 겪은, 전체 체험에 대한 의식(意識)을 공유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해방시키는 손길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우주 수준으로 올라간 그 모든 필사 피조물의 본성을 둘러싸고 마음을 감싼다. **만유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성한 현존의 접촉을 통해, 전 우주의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하는 생애(生涯)에서 미성숙과 불완전성에 대한 체험에 실제로 참여하신다.

인간의 제한조건, 즉 잠재적 악(惡)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필사자가 겪는 악에 대한 체험, 그리고 사람과 악의 모든 관계는, 시간 세계에서 자녀--곧 **낙원**에서 나오는 모든 **창조주 아들**이 창조했거나 진화시킨 도덕적 책임을 지닌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항상_확장하는 자아_실현의 일부분임이 매우 확실하다.

3. 응보와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따라서 공정하시다. “**주는** 자신의 모든 방식에서 의로우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원인 없이 한 것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심판은 참되고 아주 의로우시다.” **만유의 아버지**의 응보(應報, 또는 공의公義)는 피조물의 행위와 업적에 영향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어떤 죄악도 없으며,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현명한 자연 법칙과 올바른 영적 명령의 시행으로 말미암는 정확한 결말을 우리가 피해보려고, 그의 불변하는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그에게 철없이 간청함은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범죄의 수확물을 거둬들인다는 응보의 경우에도, 이 신성한 응보는 항상 자비로 완화된단다. 무한한 지혜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측정될 응보와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중재자다. **하나님**의 정부(政府)에 대항하는 범죄와, 고의적 반역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실제로는 불가피한 결말인데) 그 정부에서 개별 백성으로서의 실존을 잃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죄의 최종 결과는 소멸이다. 결국, 죄와_동일시되는 그런 개인은, 자신이 죄악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비실체(非實體)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렇지만 그런 피조물의 실제 소멸은, 그 우주에서 통용되는 응보의 규정된 관례가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늘 연기된다.

실존의 중지(中止)는, 일반적으로 그 영역이나 영역들의 섭리시대, 또는 시기의 판결이 있을 때 공표된다.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는, 그것이

of all the experience of imperfectness of all the struggling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all the Paradise Creator Sons. The personal and liberating touch of the God of perfection overshadows the hearts and encircles the natures of all those mortal creatures who have ascended to the universe level of moral discernment. In this manner, as well as through the contacts of the divine presence,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experience *with* immaturity and imperfection in the evolving career of every moral being of the entire universe.

2:2.7 (36.5) Human limitations, potential evil, are not a part of the divine nature, but mortal experience *with* evil and all man's relations thereto are most certainly a part of God's ever-expanding self-realization in the children of time — creatures of moral responsibility who have been created or evolved by every Creator Son going out from Paradise.

3. JUSTICE AND RIGHTEOUSNESS

2:3.1 (36.6) God is righteous; therefore is he just. “The Lord is righteous in all his ways.” “‘I have not done without cause all that I have done,’ says the Lord.” “The judgment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The justice of the Universal Father cannot be influenced by the acts and performances of his creatures, “for there is no iniquity with the Lord our God, no respect of persons, no taking of gifts.”

2:3.2 (36.7) How futile to make puerile appeals to such a God to modify his changeless decrees so that we can avoid the just consequences of the operation of his wise natural laws and righteous spiritual mandates!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True, even in the justice of reaping the harvest of wrongdoing, this divine justice is always tempered with mercy. Infinite wisdom is the eternal arbiter which determines the proportions of justice and mercy which shall be meted out in any given circumstance. The greatest punishment (in reality an inevitable consequence) for wrongdoing and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is loss of existence as an individual subject of that government. The final result of wholehearted sin is annihilation. In the last analysis, such sin-identified individuals have destroyed themselves by becoming wholly unreal through their embrace of iniquity. The factual disappearance of such a creature is, however, always delayed until the ordained order of justice current in that universe has been fully complied with.

2:3.3 (37.1) Cessation of existence is usually decreed at the dispensational or epochal adjudication of the realm or realms. On a world

행성의 섭리시대 끝에 온다. 실존의 증지는, 행정 회의로부터 **창조주 아들**의 법정을 거쳐서 **태고 항존자들**의 심판 법정에 이르는, 사법권을 갖는 모든 재판소의 협조된 조치에 따라 그런 시기에 공표될 수 있다. 사멸(死滅) 명령은, 범죄자가 거주한 그 구채에서 기원되는 고소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전혀 불가능할 만큼 확인한 후에, 연방우주의 상급법원에서 이뤄지며; 그 다음에, 소멸 판결이 위에서 다 확인되고 나면, 집행은 연방우주 본부에 거주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재판관들의 직접 행위에 따라서 이뤄진다.

이 판결이 최종 확인되면, 죄와 동일시된 존재는 즉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런 운명은 부활(復活)되지 않으며; 그 운명은 영구적이고 영원하다. 살아있는 정체성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변질됨에 따라서, 그것들이 언젠가 출현했던 시공우주 잠재성 속으로 분해된다. 사악한 존재의 인격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했을 수도 있는 그 선택과 최종 결정을 이룩하기에 피조물이 실패함으로써, 영속하는 생명 수여통로(授與通路)를 뺏긴다. 연합된 정신이 계속 죄를 품어서 마침내 죄악과 완전히 자아_일치되면, 그 다음에 생명이 중지되고 나서, 시공우주에서 분해됨에 따라, 그런 격리된 인격은 창조의 대령(大靈)에 흡수되는데,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결코 다시 어떤 인격체로서 나타나지 않으며; 그 정체성은 마치 전혀 생겨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조울사**가 내주했던 인격체의 경우에는, 영속하는 **조울사**의 실체 속에서 체험적 영(靈) 가치가 살아남는다.

실체의 실제 수준들 사이에 어떤 우주 논쟁이 생기든지, 높은 수준의 인격체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격체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우주 갈등의 이 필연적 결과는, 의지를 지닌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의 실체성 또는 실체성의 정도와 고귀한 신성이 같아진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희석되지 않은 악, 완성된 실책, 고의적인 죄, 그리고 완화된 죄악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자멸한다. 시공우주 비실체성에 해당하는 그런 태도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올바르게 판결하는 우주 재판소의 응보를 결정하고 공평을 찾는 절차가 작동할 때까지, 일시적 자비와_아량을 베풀기 때문이다.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통치는, 창조하고 영성화 시키는 통치다. 점진적으로 필사자가 상승하는 **낙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에, 그리고 반역자 및 그릇되게 생각하는 자들을 복귀시키기에 이 **아들**들이 전념하지만, 그런 모든 사랑하는 수고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거부되면, **태고 항존자들**의 관할권 아래서 집행하는 자들이 최종 소멸 명령을 집행한다.

such as Urantia it comes at the end of a planetary dispensation. Cessation of existence can be decreed at such times by co-ordinate action of all tribunals of jurisdiction, extending from the planetary council up through the courts of the Creator Son to the judgment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mandate of dissolution originates in the higher courts of the superuniverse following an unbroken confirmation of the indictment originating on the sphere of the wrongdoer's residence; and then, when sentence of extinction has been confirmed on high, the execution is by the direct act of those judges residential on, and operating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2.3.4 (37.2) When this sentence is finally confirmed, the sin-identified being instantly becomes as though he had not been.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such a fate; it is everlasting and eternal. The living energy factors of identity are resolved by the transformations of time and the metamorphoses of space into the cosmic potentials whence they once emerged. As for the personality of the iniquitous one, it is deprived of a continuing life vehicle by the creature's failure to make those choices and final decisions which would have assured eternal life. When the continued embrace of sin by the associated mind culminates in complete self-identification with iniquity, then upon the cessation of life, upon cosmic dissolution, such an isolated personality is absorbed into the oversoul of creation, becoming a part of the evolving experience of the Supreme Being. Never again does it appear as a personality; its identity becomes as though it had never been. In the case of an Adjuster-indwelt personality, the experiential spirit values survive in the reality of the continuing Adjuster.

2.3.5 (37.3) In any universe contest between actual levels of reality, the personality of the higher level will ultimately triumph over the personality of the lower level. This inevitable outcome of universe controversy is inherent in the fact that divinity of quality equals the degree of reality or actuality of any will creature. Undiluted evil, complete error, willful sin, and unmitigated iniquity are inherently and automatically suicidal. Such attitudes of cosmic unreality can survive in the universe only because of transient mercy-tolerance pending the action of the justice-determining and fairness-finding mechanisms of the universe tribunals of righteous adjudication.

2.3.6 (37.4) The rule of the Creato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is one of creation and spiritualization. These Sons devote themselves to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Paradise plan of progressive mortal ascension, to the rehabilitation of rebels and wrong thinkers, but when all such loving efforts are finally and forever rejected, the final decree of dissolution is executed by forces act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4. 신성한 자비

자비는 다만, 유한한 피조물의 타고난 연약성 및 환경의 불이익을 완전하게 알고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지혜로 응보가 완화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연민이 가득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가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가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자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되는데”; 그렇다,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스런 친절과 심판과 정의를 베푸는 **주**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자녀를 고의로 괴롭히지 않고 슬프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자비의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래 친절하고, 당연히 인정 많으며, 영원토록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그의 사랑스런 친절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어떤 영향이든지 끼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피조물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섬세한 자비와 구원하는 은혜의 충분한 흐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자녀에 관해 전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사람이 이웃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든지 동시에 응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무한한 지혜의 분별력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에 있는 자녀를 향한 상반된 입장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하나님**은 사고방식의 반목을 결코 겪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이 그의 자유의지를 틀림없이 이끌어, 그의 영원한 본성에 속하는 모든 신성한 속성과 무한한 자질의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만족시키도록, 우주의 운영을 결정하신다.

자비는 선함과 사랑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랑의 **아버지**는, 선한 본성 때문에, 우주 자녀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을 향한 현명한 자비 사역을 도저히 억제하실 수 없다. 인간의 체형에서 소위 **공평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영원한 응보와 신성한 자비가 함께 구성한다.

신성한 자비는, 완전한 우주 수준과 불완전한 우주 수준 사이를 조절하는 공정한 기법을 보여준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상황에 **지존성**의 응보가 맞춰진 것이요, 시간세계에서 자녀의 최고 이익과 우주 복지를 만족시키도록 수정된 영원한 의로움이다. 자비는, 응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下位} 영적 존재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들에 속한 물질 피조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듯이, 오히려 최상의 응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

4. THE DIVINE MERCY

2:4.1 (38.1) Mercy is simply justice tempered by that wisdom which grows out of perfection of knowledge and the full recognition of the natural weaknesses and environmental handicaps of finite creature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gracious, long-suffering, and plenteous in mercy.” Therefore “whosoever calls upon the Lord shall be save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The mercy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es, “his mercy endures forever.” “I am the Lord who executes loving-kindness, judgment,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I do not afflict willingly nor grieve the children of men,” for I am “the Father of mercies and the God of all comfort.”

2:4.2 (38.2) God is inherently kind, naturally compassionate, and everlastingly merciful. And never is it necessary that any influence be brought to bear upon the Father to call forth his loving-kindness. The creature's need is wholly sufficient to insure the full flow of the Father's tender mercies and his saving grace. Since God knows all about his children, it is easy for him to forgive. The better man understands his neighbor, the easier it will be to forgive him, even to love him.

2:4.3 (38.3) Only the discernment of infinite wisdom enables a righteous God to minister justice and mercy at the same time and in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The heavenly Father is never torn by conflicting attitudes towards his universe children; God is never a victim of attitudinal antagonisms. God's all-knowingness unfailingly directs his free will in the choosing of that universe conduct which perfectly, simultaneously, and equally satisfies the demands of all his divine attributes and the infinite qualities of his eternal nature.

2:4.4 (38.4) Mercy is the natural and inevitable offspring of goodness and love. The good nature of a loving Father could not possibly withhold the wise ministry of mercy to each member of every group of his universe children. Eternal justice and divine mercy together constitute what in human experience would be called *fairness*.

2:4.5 (38.5) Divine mercy represents a fairness technique of adjustment between the universe levels of perfection and imperfection. Mercy is the justice of Supremacy adapted to the situations of the evolving finite, the righteousness of eternity modified to meet the highest interests and universe welfare of the children of time. Mercy is not a contravention of justice but rather an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of the demands of

한 이해심 있는 해석이다. 자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계의 다양한 지성체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적용됐던 **낙원 삼위일체**의 응보인데, 그 응보는 **만유의 아버지** 및 그의 모든 연합된 **창조주**들의 신성한 지혜로 조직되고, 전지{全知}의 정신과 주권적 자유의지로 결정된다.

5.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주 업무에 대한 그의 유일한 개인 입장은 항상 신성한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해가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게 하신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은 것으로, 또는 하위 피조물이 탄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데,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조율사**를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도록 보내심은, 이런 아버지로서의 애정에 반응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는 “진리에 속하는 지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창조주들은, 신성한 법칙을 미련하게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하려고, 가장 먼저 시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으로 아버지다운 애정이며; 따라서 그는 때로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벌하신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동안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고통 받고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죄인에게 신성하게 친절하시다. 반역자들이 의로움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의 죄악을 지워버리는 자이며,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최고의 이유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선물 때문이다--곧 너희 두 존재가 영원히 하나 될 그때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율사** 때문이다. 너희가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너희가 내주하는 그 영의 인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우주에서 우주로, 그리고 한 시대 한 시대, 마침내 너희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인격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틀림없이 인

supreme justice as it is fairly applied to the subordinate spiritual beings and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Mercy is the justice of the Paradise Trinity wisely and lovingly visited upon the manifold intelligences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s it is formulated by divine wisdom and determined by the all-knowing mind and the sovereign fre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his associated Creators.

5. THE LOVE OF GOD

2:5.1 (38.6) “God is love”; therefore his only personal attitude towards the affairs of the universe is always a reaction of divine affection. The Father loves us sufficiently to bestow his life upon us. “He mak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2:5.2 (39.1) It is wrong to think of God as being coaxed into loving his children because of the sacrifices of his Sons or the intercession of his subordinate creatures,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It is in response to this paternal affection that God sends the marvelous Adjusters to indwell the minds of men. God’s love is universal; “whosoever will may come.” He would “have all men be saved by coming i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He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2:5.3 (39.2) The Creators are the very first to attempt to save man from the disastrous results of his foolish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s. God’s love is by nature a fatherly affection; therefore does he sometimes “chasten us for our own profit,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Even during your fiery trials remember that “in all our afflictions he is afflicted with us.”

2:5.4 (39.3) God is divinely kind to sinners. When rebels return to righteousness, they are mercifully received, “for our God will abundantly pardon.”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2:5.5 (39.4) After all, the greatest evidence of the goodness of God and the supreme reason for loving him is the indwelling gift of the Father — the Adjuster who so patiently awaits the hour when you both shall be eternally made one. Though you cannot find God by searching, if you will submit to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spirit, you will be unerringly guided, step by step, life by life, through universe upon universe, and age by age, until you finally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도될 것이다.

인간 본성의 한계와 물질적으로 창조됨으로 인한 장애물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함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횡단할 수 없는 굉장한 거리가(곧 물리적 공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있어야만 되는 엄청난 영적 격차의 간격이 있지만, 너희를 **하나님**의 인격있는 **낙원** 현존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떼어놓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중대한 사실을 멈춰서 숙고해 보라;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그 간격에 다리를 놓으셨다. 너희가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할 때, 그는 너희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수고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 즉 자기 영을 보내셨다.

그토록 위대하면서도 하급 피조물을 항상 시켜주는 사역에, 그토록 애정을 다해 헌신하시는 분을 경배하는 것이 쉽고도 기쁜 일임을, 나는 발견한다. 창조함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제함에서 그토록 능력 있는 분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드리우는 사랑하는 친절함에서 그토록 신실하고, 선함에서 그토록 완전하신 분을, 나는 당연히 사랑한다. 그토록 위대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한, 나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운 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라기보다, 그 본성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다.

공간에서 우주의 진화에 내재된 시간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기려고, **창조주 아들**들과 그 하위 경영자들이 그토록 용맹스럽게 분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비교적 작은 이 우주 통치자들에게 내가 어떤 크고 깊은 애정을 갖게 됨을 나는 발견한다. 결국 나는, 그 영역의 필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만유의 아버지**를, 그리고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격체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존성, 궁극성, 및 절대성이라는 그의 전체 속성을 그에게서 벗겨내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최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현재와 영원한 시대들의 끝없는 궤도 도처에서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성을 숙고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인격자의 이성적이고 자연스런 반응은 한 가지 밖에 없는데: 너희는 **조물주**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부모에게 드리는 것과 유사한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인데; 아버지, 즉 실제 아버지이자 참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만유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창조된 아들과 딸들의 복지를 영원히 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총명하고 선견지명 있는 부모다운 애정이다. 신성한 사랑은,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에 속하는 신성한 지혜 및 다른 모든 무한한 특질과 통일을 이룬 연합체에서

2:5.6 (39.5) How unreasonable that you should not worship God because the limitations of human nature and the handicaps of your material creation make it impossible for you to see him. Between you and God there is a tremendous distance (physical space) to be traversed. There likewise exists a great gulf of spiritual differential which must be bridged; but notwithstanding all that physically and spiritually separates you from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God, stop and ponder the solemn fact that God lives within you; he has in his own way already bridged the gulf. He has sent of himself, his spirit, to live in you and to toil with you as you pursue your eternal universe career.

2:5.7 (39.6) I find it easy and pleasant to worship one who is so great and at the same time so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 uplifting ministry of his lowly creatures. I naturally love one who is so powerful in creation and in the control thereof, and yet who is so perfect in goodness and so faithful in the loving-kindness which constantly overshadows us. I think I would love God just as much if he were not so great and powerful, as long as he is so good and merciful. We all love the Father more because of his nature than in recognition of his amazing attributes.

2:5.8 (39.7) When I observe the Creator Sons and their subordinate administrators struggling so valiantly with the manifold difficulties of time inherent i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s of space, I discover that I bear these lesser rulers of the universes a great and profound affection. After all, I think we all, including the mortals of the realms, love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other beings, divine or human, because we discern that these personalities truly love us. The experience of loving is very much a direct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being loved. Knowing that God loves me, I should continue to love him supremely, even though he were divested of all his attribute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2:5.9 (40.1) The Father's love follows us now and throughout the endless circle of the eternal ages. As you ponder the loving nature of God, there is only one reasonable and natural personality reaction thereto: You will increasingly love your Maker; you will yield to God an affection analogous to that given by a child to an earthly parent; for, as a father, a real father, a true father, loves his children, so the Universal Father loves and forever seeks the welfare of his created sons and daughters.

2:5.10 (40.2) But the love of God is an intelligent and farseeing parental affection. The divine love functions in unified association with divine wisdom and all other infinite characteristics of the perfect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필사 존재를 향한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현시{顯示}를, **사고 조을사**를 증여하심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가장 크게 계시한 것은, 그의 **미가엘 아들이**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생애를 살았을 때 그의 증여 생애에서 나타난다. 각각의 인간 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개별화시키는 이는, 바로 내주하는 **조을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주의 자녀들에게 품는 신성한 애정을, **사랑**이라는 인간 단어 상징을 채택함으로써 묘사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이따금씩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다. 이 용어는, 비록 존경과 헌신이라는 필사자 관계에 대한 사람의 최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너무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단어든지, 우주 피조물을 향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유례없는 애정을 가리키는 데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완전히 저급하고 전혀 맞지 않다!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의 참된 본성과 절묘하게 아름다운 의미를 인간 정신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숭고한 전용{專用}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없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인격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잊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선한 왕국이 될 뿐이다. 신의 본성이 무한히 통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친히 나누는 모든 교제의 지배적인 특징이다.

6.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물리적 우주에서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지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종교는, 진정한 본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이자_신뢰다. 철학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 지성적이고 인격적일 수 있지만, 종교에서 **하나님**은 역시 도덕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선하셔야 한다.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은 두려워하겠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 인격의 일부이며, 이 선하심에 대한 충만한 계시는,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겪는 종교 체험에서만 나타난다.

종교는, 영{靈} 본성을 갖는 초월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결핍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화 종교는 윤리적이 될 수 있지만, 계시된 종교만이 참되게 영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하나님**이 왕에 어울리는 도덕성의 지배를 받는 **신격{神格}**이라는 옛 개념은, 부모_자녀 관계라는 긴밀한 가족 도덕성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는 수준으로 **예수** 때문에 향상됐는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없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ove, but love is not God.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the divine love for mortal beings is observed in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but your greatest revelation of the Father's love is seen in the bestowal life of his Son Michael as he lived on earth the ideal spiritual life. It is the indwelling Adjuster who individualizes the love of God to each human soul.

2:5.11 (40.3) At times I am almost pained to be compelled to portray the divine aff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for his universe children by the employment of the human word symbol *love*. This term, even though it does connote man's highest concept of the mortal relations of respect and devotion, is so frequently designative of so much of human relationship that is wholly ignoble and utterly unfit to be known by any word which is also used to indicate the matchless affection of the living God for his universe creatures! How unfortunate that I cannot make use of some supernal and exclusive term which would convey to the mind of man the true nature and exquisitely beautiful significance of the divine affection of the Paradise Father.

2:5.12 (40.4) When man loses sight of the love of a personal God, the kingdom of God becomes merely the kingdom of good. Notwithstanding the infinite unity of the divine nature, love is the dominant characteristic of all God's personal dealings with his creatures.

6. THE GOODNESS OF GOD

2:6.1 (40.5) In the physical universe we may see the divine beauty, in the intellectual world we may discern eternal truth, but the goodness of God is found only in the spiritual world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its true essence, religion is a faith-trust in the goodness of God. God could be great and absolute, somehow even intelligent and personal, in philosophy, but in religion God must also be moral; he must be good. Man might fear a great God, but he trusts and loves only a good God. This goodness of God is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God, and its full revelation appears only i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believing sons of God.

2:6.2 (40.6) Religion implies that the superworld of spirit nature is cognizant of, and responsive to,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human world. Evolutionary religion may become ethical, but only revealed religion becomes truly and spiritually moral. The olden concept that God is a Deity dominated by kingly morality was upstepped by Jesus to that affectionately touching level of intimate family mor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which there is none more tender

다.

“**하나님**의 풍부한 선하심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안내한다.” “모든 선한 은사{恩賜}와 모든 완전한 은사는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람 혼의 영원한 피난처시다.”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는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하시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는 인자하고 연민이 충만하시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혼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사람의 전능한 은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요_재판관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비록 높은 도덕 표준을 조성하고 법을 존중하는 한 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세웠었더라도, 개별 신앙인이 시간세계와 영원세계에서 자기 신분을 확신할 수 없는 슬픈 처지에 놓이게 했다. 후기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게 **아버지** 되심을 선언했으며, **예수**는, **하나님**을 인간 각자의 **아버지**로 계시했다. **예수**의 생애가 필사자의 **하나님** 개념 전체에 초월적으로 빛을 비췄다. 사심{私心}없음이 부모의 사랑에 내재돼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 **처럼**이 아니라 아버지 **로서** 사랑하신다. 그는 모든 우주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이심을, 정의{正義}가 암시한다. 진리는 **하나님**을 계시자로, 선생님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또한 갈망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사려 깊은 친교를 추구한다. 정의는 신성한 사고{思考}이겠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심 없는 사랑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추측이, **신격**의 본성에 통일성이 결여됐음을 전제했고, 속죄{贖罪} 교리라는 정교한 작품이 나오도록 직접 인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자유_의지성{意志性}, 둘 다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하늘에 계신 애정 어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자녀에게 내주하는, 그의 영광 분리된 인격체--곧 응보의 한 존재 및 자비의 한 존재--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또는 용서를 보장하는 데는 중재인이 필요하지 않다. 신성한 정의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응보에 지배되지 않으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화내지 않으신다. 그의 거부된 자비를 응보가 검사하는 동안, 지혜가 종종 그의 사랑을 억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의를 사랑하심은, 죄를 한결같이 미워하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변덕스런 인격체가 아니며; 신{神}의 통일성은 완전하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들의 영원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절대 통일성이 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

and beautiful in mortal experience.

2:6.3 (41.1) The “richness of the goodness of God leads erring man to repentance.”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comes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God is good; he is the eternal refuge of the souls of men.” “The Lord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He i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him.” “The Lord is gracious and full of compassion. He is the God of salvation.”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 wounds of the soul. He is man’s all-powerful benefactor.”

2:6.4 (41.2) The concept of God as a king-judge, although it fostered a high moral standard and created a law-respecting people as a group, left the individual believer in a sad position of insecurity respecting his status in time and in eternity. The later Hebrew prophets proclaimed God to be a Father to Israel; Jesus revealed God as the Father of each human being. The entire mortal concept of God is transcendently illuminated by the life of Jesus. Selflessness is inherent in parental love. God loves not *like* a father, but as a father. He is the Paradise Father of every universe personality.

2:6.5 (41.3) Righteousness implies that God is the source of the moral law of the universe. Truth exhibits God as a revealer, as a teacher. But love gives and craves affection, seeks understanding fellowship such as exists between parent and child. Righteousness may be the divine thought, but love is a father’s attitude. The erroneous supposition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was irreconcilable with the selfless love of the heavenly Father, presupposed absence of unity in the nature of Deity and led directly to the elaboration of the atonement doctrine, which is a philosophic assault upon both the unity and the free-willness of God.

2:6.6 (41.4) The affectionate heavenly Father, whose spirit indwells his children on earth, is not a divided personality — one of justice and one of mercy — neither does it require a mediator to secure the Father’s favor or forgiveness. Divine righteousness is not dominated by strict retributive justice; God as a father transcends God as a judge.

2:6.7 (41.5) God is never wrathful, vengeful, or angry. It is true that wisdom does often restrain his love, while justice conditions his rejected mercy. His love of righteousness cannot help being exhibited as equal hatred for sin. The Father is not an inconsistent personality; the divine unity is perfect. In the Paradise Trinity there is absolute unity despite the eternal identities of the co-ordinates of God.

2:6.8 (41.6) God loves the sinner and *hates* the sin:

다는:그런 말은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하나님**은 초월 인격체시며, 인격자만이 다른 인격자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죄는 인격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잠재적으로 영원한) 인격 실체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반면,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어떤 인격있는 입장으로 취하지 않으시며;죄는 인격적이지 않으며;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응보만이 죄의 실존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며;**하나님**의 법이 죄를 꺾어버린다. 필사 정신이 그에게 내주하는 영 **조율사**와 온전히 한 편이 될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 죄인이 자신을 죄와 죄중적으로 충분히 동일시하게 되면, 신성한 본성에 속하는 이 입장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죄와 일치된 그런 필사자는, 사실상 완전히 비{非}영적 상태가 되고(따라서 개인적으로 비실체가 되고), 존재의 최후 소멸을 체험할 것이다. 비실체는, 심지어 완결되지 않은 피조물 본성조차, 점차 실체적이고 점점 더 영적인 우주에서 영구히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격체의 세계와 대면할 때 사랑하느 인격자이심이 발견되며;영적 세계와 대면할 때 인격있는 사랑이시며;종교 체험에서는 둘 다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성한 자유_의지작용에--곧 사랑하고, 자비를 보이고, 인내를 나타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경향에-- 기초를 둔다.

7.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모든 유한한 지식과 피조물 이해력은 **상대적**이다. 정보와 소식은, 높은 출처에서 얻었다라고, 상대적으로 완성되고 부분적으로 정확하며 개인적으로 참될 뿐이다.

물리적 사실은 상당히 일정하지만, 진리는 우주 철학에서 살아있고 융통성 있는 어떤 요소다. 진화하는 인격체는 자신의 의사소통에서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오직 개인 체험이 확장되는 한도까지만 확신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외견상 전적으로 참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창조 구역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수도 있다.

신성한 진리, 최종적인 진리는 불변이고 보편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체험의 기간과 범위에서뿐 아니라 개인 체험의 충만함에서 그리고 지식의 완결에서 상대적으로 참되 때문이다.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법칙과 뜻, 생각과 입장은, 영원히, 무한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되며;동시에, 각 우주와 체계와 세계와 창조된 지성체를 위한 조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법칙과 뜻, 생각과 입장의 적용은, **창조주 아들**들이 각자의 우주에서 활동할 때, **무한한 영**의, 그리고 다른 모든 연합된 천상{天上}의 인격체의, 국지

such a statement is true philosophically, but God is a transcendent personality, and persons can only love and hate other persons. Sin is not a person. God loves the sinner because he is a personality reality (potentially eternal), while towards sin God strikes no personal attitude, for sin is not a spiritual reality; it is not personal; therefore does only the justice of God take cognizance of its existence. The love of God saves the sinner; the law of God destroys the sin. This attitude of the divine nature would apparently change if the sinner finally identified himself wholly with sin just as the same mortal mind may also fully identify itself with the indwelling spirit Adjuster. Such a sin-identified mortal would then become wholly unspiritual in nature (and therefore personally unreal) and would experience eventual extinction of being. Unreality, even incompleteness of creature nature, cannot exist forever in a progressively real and increasingly spiritual universe.

2:6.9 (42:1) Facing the world of personality, God is discovered to be a loving person; facing the spiritual world, he is a personal love; in religious experience he is both. Love identifies the volitional will of God. The goodness of God rests at the bottom of the divine free-willness — the universal tendency to love, show mercy, manifest patience, and minister forgiveness.

7. DIVINE TRUTH AND BEAUTY

2:7.1 (42:2) All finite knowledge and creature understanding are *rela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gleaned from even high sources, is only relatively complete, locally accurate, and personally true.

2:7.2 (42:3) Physical facts are fairly uniform, but truth is a living and flexible factor in the philosophy of the universe. Evolving personalities are only partially wise and relatively true in their communications. They can be certain only as far as their personal experience extends. That which apparently may be wholly true in one place may be only relatively true in another segment of creation.

2:7.3 (42:4) Divine truth, final truth, is uniform and universal, but the story of things spiritual, as it is told by numerous individuals hailing from various spheres, may sometimes vary in details owing to this relativity in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and in the repleteness of personal experience as well as in the length and extent of that experience. While the laws and decre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re eternally, infinitely, and universally true; at the same time, their application to, and adjustment for, every universe, system, world, and created intelligence, are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and

적{局地的} 계획과 과정에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기법에 일치한다.

유물론이라는 잘못된 과학은, 필사적 사람을 우주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판결할 것이다. 그런 부분적인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하며; 선과 악, 둘 다로 구성된 지식이다. 진리는 충만한 동시에 균형 잡혔기 때문에 아름답다. 진리를 탐색할 때, 사람은 신성하게 실제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추상개념의 오류 속으로, 즉 실체의 한 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외골수적 견해를 전체적인 진리가 되도록 선언하는 풍습으로 잘못 인도될 때, 철학자는 가장 심각한 실책을 범한다. 현명한 철학자는, 전체 우주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선재{先在}하는, 창조 설계도를 항상 찾으려고 할 것이다. 창조자의 사고{思考}가 창조 행위보다 항상 앞선다.

지성적 자아_의식은, 그 개념의 철학적 일관성뿐 아니라, 항상_현존하는 **진리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에 따라서, 진리의 아름다움, 즉 진리의 영적 특질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진리를 알아본 결과로 생기는데, 진리를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책에는 실망과 슬픔이 따라오는데, 실책은 실체가 아니므로,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될 수 없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로 가장 잘 식별된다.

영원한 추구는 통합, 즉 신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범한 물리적 우주는 **낙원 섬**에 붙어있으며; 지적 우주는 정신의 **하나님**, 즉 **공동 행위자**에게 붙어있으며; 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인격에 붙어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고립된 필사자는,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와 **만유의 아버지** 사이의 직접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다. 사람의 **조율사**는, **하나님**의 단편{斷片}이고, 신과의 통합을 영원히 추구하며; **제1 근원 및 중심의 낙원신격**에, 그리고 그 안에, 붙어있다.

최상의 아름다움을 식별함은 실체를 발견하고 종합하는 것이며;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함을 식별함, 그것이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심지어 인간 예술의 매력도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에 있다.

히브리 종교의 큰 실수는, 과학의 사실적 진리와 예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합시키기에 실패한 것이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그리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동일한 어리석은 행로를 종교가 계속 추구한 후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된 선하심이라는 추상적{抽象的}이고 분열된 개

technique of the Creator Sons as they function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as well as in harmony with the local plans and procedur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of all other associated celestial personalities.

2.7.4 (42.5) The false science of materialism would sentence mortal man to become an outcast in the universe. Such partial knowledge is potentially evil; it is knowledge composed of both good and evil. Truth is beautiful because it is both replete and symmetrical. When man searches for truth, he pursues the divinely real.

2.7.5 (42.6) Philosophers commit their gravest error when they are misled into the fallacy of abstraction, the practice of focusing the attention upon one aspect of reality and then of pronouncing such an isolated aspect to be the whole truth. The wise philosopher will always look for the creative design which is behind, and pre-existent to, all universe phenomena. The creator thought invariably precedes creative action.

2.7.6 (42.7)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can discover the beauty of truth, its spiritual quality, not only by the philosophic consistency of its concepts, but more certainly and surely by the unerring response of the ever-present Spirit of Truth. Happiness ensues from the recognition of truth because it can be *acted out*; it can be lived. Disappointment and sorrow attend upon error because, not being a reality, it cannot be realized in experience. Divine truth is best known by its *spiritual flavor*.

2.7.7 (42.8) The eternal quest is for unification, for divine coherence. The far-flung physical universe coheres in the Isle of Paradise; the intellectual universe coheres in the God of mind, the Conjoint Actor; the spiritual universe is coher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But the isolated mortal of time and space coheres in God the Father through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and the Universal Father. Man's Adjuster is a fragment of God and everlastingly seeks for divine unification; it coheres with, and in, the Paradise De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2.7.8 (43.1) The discernment of supreme beauty is the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reality: The discernment of the divine goodness in the eternal truth, that is ultimate beauty. Even the charm of human art consists in the harmony of its unity.

2.7.9 (43.2) The great mistake of the Hebrew religion was its failure to associate the goodness of God with the factual truths of science and the appealing beauty of art. As civilization progressed, and since religion continued to pursue the same unwise course of overemphasizing the goodness of God to the relative exclusion of truth and neglect of beauty, there developed an increasing tendency for

념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진전됐다. 근대 종교의 과도하게 강압되고 고립된 도덕성은, 20_세기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그 도덕적 명령에 덧붙여서,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이라는 진리를 배려하고, 물리 창조계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성품 성취의 위엄을 똑같이 배려하고자 한다면, 그 도덕성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선견지명 있고 앞을 내다보는 남녀를 향한 것인데, 그 남녀는 시공우주 진리, 우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의 선하심에 대한 확장되고 절묘하게 통합된 근대적 개념에서 살아 나오는, 어떤 새롭고 매력적인 철학을 감히 구축할 것이다. 도덕성에 대한 그런 새롭고도 정의로운 선견(先見)은, 인간의 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에 도전하고, 사람의 정신 속에서 선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신성한 실체이며, 사람이 영적 삶의 단계를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자**의 이런 최상의 특성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조정되고 통일될 것이다.

모든 --물질적, 철학적, 또는 영적-- 진리는 아름답고 선하다. 모든 실제 아름다움--곧 물질적 기술 또는 영적 균형--은 참된 동시에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함도 --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공평성, 신성한 사역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 온전한 정신, 그리고 행복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어우러질 때, 그 세 가지가 통합된 것이다. 능률적인 삶의 그런 수준은, 에너지 체계와 관념 체계 그리고 영 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발생한다.

진리는 일관적이고, 아름다움은 매력적이며, 선함은 안정적이다. 실재하는 것의 가치가 인격체의 체험에서 조정될 때, 그 결과는 지혜로 조절되고 충성으로 자격을 갖춘, 높은 등급의 사랑이다. 모든 우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에서 고립된 자녀가, 자신의 팽창하는 체험이라는 더 큰 실체들과 더 나은 협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수준에서는 유한하고, 더 높고 신성한 수준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certain types of men to turn away from the abstract and dissociated concept of isolated goodness. The overstressed and isolated morality of modern religion, which fails to hold the devotion and loyalty of many twentieth-century men, would rehabilitate itself if, in addition to its moral mandates, it would give equal consideration to the truths of science, philosophy, and spiritual experience, and to the beauties of the physical creation, the charm of intellectual art, and the grandeur of genuine character achievement.

2.7.10 (43.3) The religious challenge of this age is to those farseeing and forward-looking men and women of spiritual insight who will dare to construct a new and appealing philosophy of living out of the enlarged and exquisitely integrated modern concepts of cosmic truth, universe beauty, and divine goodness. Such a new and righteous vision of morality will attract all that is good in the mind of man and challenge that which is best in the human soul.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divine realities, and as man ascends the scale of spiritual living, these supreme qualities of the Eternal become increasingly co-ordinated and unified in God, who is love.

2.7.11 (43.4) All truth — material, philosophic, or spiritual — is both beautiful and good. All real beauty — material art or spiritual symmetry — is both true and good. All genuine goodness — whether personal morality, social equity, or divine ministry — is equally true and beautiful. Health, sanity, and happiness are integratio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s they are blended in human experience. Such levels of efficient living come about through the unification of energy systems, idea systems, and spirit systems.

2.7.12 (43.5) Truth is coherent, beauty attractive, goodness stabilizing. And when these values of that which is real are co-ordinated in personality experience, the result is a high order of love conditioned by wisdom and qualified by loyalty. The real purpose of all universe education is to effect the better co-ordination of the isolated child of the worlds with the larger realities of his expanding experience. Reality is finite on the human level, infinite and eternal on the higher and divine levels.

2.7.13 (43.5)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3편. 하나님의 속성

⇨ 002

유랜시아 책

004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3편
하나님의 속성

섹션

소개

1.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2.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3.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
4. 하나님의 무제한성
5. 아버지의 최상의 통치
6. 아버지의 탁월성

PAPER 3

THE ATTRIBUTE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God's Everywhereness
2. God's Infinite Power
3. God's Universal Knowledge
4. God's Limitlessness
5. The Father's Supreme Rule
6. The Father's Primacy

소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만유의 아버지**께서 영원성 궤도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는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하여 생명을 증여할 때에도, 지방우주들에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 구역들에서, 그리고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에서 회전하는 행성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인격있는 표현이다.

고도로 인격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된 지성체 중에서 하위 계층에게 분명히 식별될 수 있으며, 무한자가 보이지 않음과, 그래서 **아버지**를 더 식별할 수 없음을, 그렇게 보상한다.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창조주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계시인데, 영원성 궤도에 내재되고 **낙원 신격**들의 인격에 내재된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창조자직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행하는 본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창조자직무의 이 보편적 기능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화된 속성들에 제약을 받고 통제되면서 영구적으로 나

INTRODUCTION

3:0.1 (44.1) GOD is everywhere present; the Universal Father rules the circle of eternity. But he rules in the local universes in the persons of his Paradise Creator Sons, even as he bestows life through these Sons.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s.” These Creator Sons of God are the personal expression of himself in the sectors of time and to the children of the whirling planets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space.

3:0.2 (44.2) The highly personalized Sons of God are clearly discernible by the lower orders of created intelligences, and so do they compensate for the invisibility of the infinite and therefore less discernible Father. The Paradise Creator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a revelation of an otherwise invisible being, invisible because of the absoluteness and infinity inherent in the circle of eternity and i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Deities.

3:0.3 (44.3) Creatorship is hardly an attribute of God; it is rather the aggregate of his acting nature. And this universal function of creatorship is eternally manifested as it is conditioned and controlled by all the co-ordinated attributes of the infinite and divine

타난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 가운데 어느 한 특질이 다른 것들보다 선재{先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지만, 그 경우가 사실이었다면, **신격**의 창조자직무 본성은 다른 모든 본성, 활동, 및 속성보다 선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격**의 창조자직무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보편적 진리를 완결시킨다.

1.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어디든지 그리고 동시에 현존하실 수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역량이, 그의 편재성{遍在性}을 이룬다. **하나님**만이, 동시에, 두 곳에, 수많은 곳에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땅에” 동시에 나타나시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당신의 면전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나는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광범한 창조의 모든 부분에, 그리고 모든 마음 속에, 항상 현존하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에 충만한,” 그리고 “만물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의 충만함”이시며, 더 나아가, 그 인격 개념은, “하늘과(곧 우주와) 온갖 하늘도(곧 온갖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전 부이고 전체 속에 계심은, 말 그대로 진실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만 결국 드러날 수 있으며; 결과를 분석한다고 해서 원인을 충분히 납득할 수는 결코 없으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속박되지 않는 자유 의지로 창조적 행동을 한 결과로 탄생된 창조 전체 총계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시다. **하나님**은 시공우주를 통해서 드러내시지만, 그 시공우주는 결코 **하나님**의 무한성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아버지의 현존이 총괄우주를 끊임없이 둘러보신다. “그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그의 회로는 그 끝을 향하며; 아무 것도 그의 빛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사신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며; 그의 영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낙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물은, 사람의 분리될 수 없는 동무다.” “그는 항상 현존하고 전체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영존하는 **아버지**의 영이 모든 필사 자녀의 정신 속에 감춰져 있다.” “사람이 친구를 찾아 나서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참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며; 그는 우리의 일부분이며;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자녀 속에 사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영원한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sincerely doubt whether any one characteristic of the divine nature can be regarded as being antecedent to the others, but if such were the case, then the creatorship nature of Deity would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natures, activities, and attributes. And the creatorship of Deity culminates in the universal truth of the Fatherhood of God.

1. GOD'S EVERYWHERENESS

3:1.1 (44.4) The ability of the Universal Father to be everywhere present, and at the same time, constitutes his omnipresence. God alone can be in two places, in numberless places, at the same time. God is simultaneously present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neath”; as the Psalmist exclaimed: “Whither shall I go from your spirit? or whither shall I flee from your presence?”

3:1.2 (44.5) “‘I am a God at hand as well as afar off,’ says the Lord. ‘Do not I fill heaven and earth?’” The Universal Father is all the time present in all parts and in all hearts of his far-flung creation. He is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and in all,” and “who works all in all,” and further, the concept of his personality is such that “the heaven (universe) and heaven of heavens (universe of universes) cannot contain him.” It is literally true that God is all and in all. But even that is not *all* of God. The Infinite can be finally revealed only in infinity; the cause can never be fully comprehended by an analysis of effects; the living God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the sum total of creation that has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the creative acts of his unfettered free will. God is revealed throughout the cosmos, but the cosmos can never contain or encompass the entirety of the infinity of God.

3:1.3 (45.1) The Father’s presence unceasingly patrols the master universe. “His going forth is from the end of the heaven, and his circuit to the ends of it; and there is nothing hidden from the light thereof.”

3:1.4 (45.1) The creature not only exists in God, but God also lives in the creature. “We know we dwell in him because he lives in us; he has given us his spirit. This gift from the Paradise Father is man’s inseparable companion.” “He is the ever-present and all-pervading God.” “The spirit of the everlasting Father is concealed in the mind of every mortal child.” “Man goes forth searching for a friend while that very friend lives within his own heart.” “The true God is not afar off; he is a part of us; his spirit speaks from within us.” “The Father lives in the child. God is always with us. He is the guiding spirit of eternal destiny.”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시다.”

정말로 인간 종족에 대해 이런 말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내주하는 선물을 괴롭히는데, **사고 조율사**를 가둬두는 인간 정신과 함께, **조율사**도 악한 생각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본성의 일부이며; 공간은 **신격**에게 어떤 장애물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리고 제한 없이, 오직 **낙원**과 중앙우주에서만 식별되도록 현존하신다. 그는 **하보나**를 도는 창조계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동격 창조자 및 통치자들의 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자신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현존을 제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성한 현존에 대한 개념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낙원 섬**의 현존 회로들을 포함하는, 형태화의 양식과 경로, 양쪽의 넓은 범주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과 그의 영원한 협조자 및 대행기관들의 행위를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무한하게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매우 완전하게 충족시킨다. 그러나 인격 회로와 **조율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행동하신다.

우주 통제관은, 그 질량에 따라, 이 현존{現存}을 위한 물리적 수요에 반응해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 안에 붙어 있고 존재하도록 만드는 창조의 선천적 본성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낙원 섬**의 인격 회로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제1 근원 및 중심**은, **무조건 절대자**, 즉 영원한 미래에 속하는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의 저장소{貯藏所}에 잠재적으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물리적 우주들에 잠재적으로 참관하신다. 그는 소위 물질 창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근본 기초다. 비영적{非靈的}인 이 **신격** 잠재력은, 그의 독점 대행기관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 유를 알 수 없이 우주 작용 단계에 간섭함으로써 인해, 물리적 실존 수준 전반에 여기저기서 실체가 된다.

하나님의 정신 현존은, **공동 행위자**, 즉 **무한한 영**의 절대 정신과 관련되지만, 유한한 창조계에서는, **낙원 으뜸 영**의 시공우주 정신이 작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더 잘 식별된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들에 잠재적으로 현존함과 마찬가지로, **우주 절대자**의 균형상태 속에도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나 인간 계층의 정신은, **공동 행위자**의 딸들, 즉 진화하는 우주들의 **신성한 사역자**들의 증여물이다.

3:1.5 (45.1) Truly of the human race has it been said, “You are of God” because “he who dwells in love dwells in God, and God in him.” Even in wrongdoing you torment the indwelling gift of God, for the Thought Adjuster must needs go through the consequences of evil thinking with the human mind of its incarceration.

3:1.6 (45.1) The omnipresence of God is in reality a part of his infinite nature; space constitutes no barrier to Deity. God is, in perfection and without limitation, discernibly present only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He is not thus observably present in the creations encircling Havona, for God has limited his direct and actual presence in recognition of the sovereignty and the divine prerogatives of the co-ordinate creators and ruler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Hence must the concept of the divine presence allow for a wide range of both mode and channel of manifestation embracing the presence circuits of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Isle of Paradise. Nor is it alway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actions of his eternal co-ordinates and agencies, so perfectly do they fulfill all the infinite requirements of his unchanging purpose. But not so with the personality circuit and the Adjusters; here God acts uniquely, directly, and exclusively.

3:1.7 (45.1) The Universal Controller is potentially present in the gravity circuits of the Isle of Paradise in all parts of the universe at all times and in the same degree, in accordance with the mass, in response to the physical demands for this presence, and because of the inherent nature of all creation which causes all things to adhere and consist in him. Likewise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potentially present in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repository of the uncreated universes of the eternal future. God thus potentially pervades the physical universe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e is the primordial foundation of the coherence of the so-called material creation. This nonspiritual Deity potential becomes actual here and there throughout the level of physical existences by the inexplicable intrusion of some one of his exclusive agencies upon the stage of universe action.

3:1.8 (45.1) The mind presence of God is correlated with the absolute mind of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Spirit, but in the finite creations it is better discerned in the everywhere functioning of the cosmic mind of the Paradise Master Spirits. Just a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otentially present in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so is he potentially present in the tensions of the Universal Absolute. But mind of the human order is a bestowal of the Daughters of the Conjoint Actor, the Divine Ministers of the evolving

만유의 아버지의 어디든지_현존하는 영(靈)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현존, 그리고 **신격 절대자**의 영존하는 신성한 잠재력의 기능과 조화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낙원 아들**들의 영적 활동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의 정신 증여 역시, 그의 피조 자녀의 마음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단편(斷片)인 **사고 조율사**의 직접 행위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행성, 체계, 성좌(星座), 또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관해, 어떤 창조적 단위에서든지 그런 현존의 정도는, **지존하신 분**의 현존이 얼마나 진화했는가를 재는 척도인데: 체계와 행성 자체를 향해 내려오면서, 광대한 우주 조직의 일부분에서 전반적인 **하나님** 인식과 그를 향한 충성심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행성들이(또는 심지어 체계들이) 영적 어둠 속으로 멀리 던져졌을 때,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격리돼 있거나, 또는 더 큰 창조 단위들과의 교통에서 부분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고귀한 현존의 이 국면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기대감에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동되고 있듯이, 그 세계 가운데 대다수가 완고하고 사악하며 반역적인 소수의 이간시키는 행위들로 인해 고립되는 결과의 고통으로부터, 될수록 멀리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영적으로 방어적인 대응이다.

아버지가 어버이로서 자기 아들들--곧 모든 인격체--전체를 회로로 연결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그들이 **신격의 제2 및 제3 인격자**로부터 얼마나 멀리서 기원했는가에 따라 제한되며, 그들의 운명 달성이 그런 수준에 접근할 때 증대된다. 피조물 정신 안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신비 관찰자** 같은 **아버지** 단편이 그들에게 내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의 유효한 현존은, 내주하는 이 **조율사**가 머무는 그 정신이, **조율사**와 얼마나 협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아버지의 현존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시당함으로 인해 은둔하여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애정은, 피조물이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분**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혼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력이 미치는 수준과 정도를 직접 결정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편애함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증여해 오셨다. 그는, 인격자, 행성, 체계, 또는 우주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 시간 구역(區域)에서, **아버지**는 **칠중 하나님**의 **낙원** 인격체들에게만 서로 다른 명예를 수여하시는데, 그들은 유한한 우주의 동격 창조자다.

universes.

3:1.9 (46.1) The everywhere-present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is co-ordinated with the function of the universal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everlasting divine potential of the Deity Absolute. But neither the spiritual activity of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nor the mind bestowals of the Infinite Spirit seem to exclude the direct ac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indwelling fragments of God, in the hearts of his creature children.

3:1.10 (46.2) Concerning God's presence in a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a universe, the degree of such presence in any creational unit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the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It is determined by the en masse recognition of God and loyalty to him on the part of the vast universe organization, running down to the systems and planets themselves. Therefore it is sometimes with the hope of conserving and safeguarding these phases of God's precious presence that, when some planets (or even systems) have plunged far into spiritual darkness, they are in a certain sense quarantined, or partially isolated from intercourse with the larger units of creation. And all this, as it operates on Urantia, is a spiritually defensive reaction of the majority of the worlds to save themselves, as far as possible, from suffering the isolating consequences of the alienating acts of a headstrong, wicked, and rebellious minority.

3:1.11 (46.3) While the Father parentally encircuits all his sons — all personalities — his influence in them is limited by the remoteness of their origin from the Second and the Third Persons of Deity and augmented as their destiny attainment nears such levels. The fact of God's presence in creature mind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y are indwelt by Father fragments, such as the Mystery Monitors, but his effective presence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operation accorded these indwelling Adjusters by the minds of their sojourn.

3:1.12 (46.4) The fluctuations of the Father's presence are not due to the changeableness of God. The Father does not retire in seclusion because he has been slighted; his affections are not alienated because of the creature's wrongdoing. Rather, having been endowed with the power of choice (concerning Himself), his children, in the exercise of that choice, directly determine the degree and limitations of the Father's divine influence in their own hearts and souls. The Father has freely bestowed himself upon us without limit and without favor.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planets, systems, or universes. In the sectors of time he confers differential honor only on the Paradise personalities of God the Sevenfold, the co-ordinate

creators of the finite universes.

2.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전능한 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온 우주가 안다. 이 세계 및 다른 세계들의 직무는, 신 {神}의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의 군대에서, 그리고 이 땅의 거주자 가운데서 자기 뜻에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옳다.

신성한 본성과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민족, 행성, 및 우주의 길계_이어지는 진화 과정은, 우주 창조자와 경영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으며,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펼쳐지는데, 조화와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지혜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오직 한 분의 입법자{立法者}만 있다. 그가 세계를 공간에 떠받치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를 우주가 돌도록 하신다.

모든 신성한 속성 중에서 그의 전능성{全能性}은, 특히 물질 우주에서 진행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비영적{非靈的} 현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에너지다. 물리적 사실에 대한 이 선언은, **제1 근원 및 중심**이 모든 공간의 우주적인 물리 현상의 최초 원인이라는, 납득될 수 없는 진리에 기초한다. 이 신성한 활동에서, 모든 물리적 에너지 및 기타 물질 형태화가 시작된다. 빛, 다시 말해서, 열 없는 빛은, **신격**들의 또 다른 비영적 형태화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은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통제하시며; “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셨으며; 모든 에너지 회로를 제정해오셨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 물질이 형태화되는 시간과 방법을 그가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존하는 지배 속에--곧 하부 **낙원**에 중심을 두는 인력 통제 속에--영원히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그의 웅장한 회로 주변을 그렇게 영원히 도는데, 그것은 온갖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行列}이다. 창조된 모든 궤도는, 모든 물체와 존재의 **낙원_인격체** 중심을 영원히 돈다.

아버지의 전능성은 절대 수준에 속하는 어디에서든지 지배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며, 그 절대 수준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세 에너지가 그에게--곧 모든 것의 **근원**에게-- 아주 근접했을 때에는 식별되지 않는다. 피조물 정신은, **낙원** 단일세력도 아니고, **낙원** 영도 아닌데, **만유의 아버지**에 대해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

2. GOD'S INFINITE POWER

3:2.1 (46.5) All the universes know that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other worlds are divinely supervise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in the army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It is eternally true, “there is no power but of God.”

3:2.2 (46.6) Within the bounds of tha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ivine nature, it is literally true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long-drawn-out evolutionary processes of peoples, planets, and universes are under the perfect control of the universe creators and administrators and unfold in accordance with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proceeding in harmony and order and in keeping with the all-wise plan of God. There is only one lawgiver. He upholds the worlds in space and swings the universes around the endless circle of the eternal circuit.

3:2.3 (47.1) Of all the divine attributes, his omnipotence, especially as it prevails in the material universe, is the best understood. Viewed as an unspiritual phenomenon, God is energy. This declaration of physical fact is predicated on the incomprehensible truth tha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rimal cause of the universal physical phenomena of all space. From this divine activity all physical energy and other material manifestations are derived. Light, that is, light without heat, is another of the nonspiritual manifestations of the Deities. And there is still another form of nonspiritual energy which is virtually unknown on Urantia; it is as yet unrecognized.

3:2.4 (47.2) God controls all power; he has made “a way for the lightning”; he has ordained the circuits of all energy. He has decreed the time and manner of the manifestation of all forms of energy-matter. And all these things are held forever in his everlasting grasp — in the gravitational control centering on nether Paradise. The light and energy of the eternal God thus swing on forever around his majestic circuit, the endless but orderly procession of the starry hosts compos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All creation circles eternally around the Paradise-Personality center of all things and beings.

3:2.5 (47.3) The omnipotence of the Father pertains to the everywhere dominance of the absolute level, whereon the three energies,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are indistinguishable in close proximity to him — the Source of all things. Creature mind, being neither Paradise monota nor Paradise spirit, is not directly responsive to the Universal Father. God *adjusts* with the mind of imperfection — with

님은, 불완전한 정신에 맞추어--곧 **사고 조율사들**을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조율하신다.

만유의 아버지는, 순간적인 힘, 변경이 쉬운 동력,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는, 일부 또는 전체 우주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사태가 나타날 때, **아버지**는 그것 전체를 이미 보셨으며, 따라서 분리된 방법으로 우주 직무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하신다.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에서 맹목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긴급 통치가 이뤄지고, 자연 법칙이 중지되고, 부적응(不適應)이 인식되고, 어떤 수고가 그 상황을 교정하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보이는 환경들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하나님** 개념은, 너의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고, 네 납득력이 유한하고, 네가 조사하는 시야가 제한된 데서 생기며; 그런 잘못된 **하나님** 이해는, 그 영역의 비교적 높은 법의 실존, **아버지**의 성품의 장엄함, 그의 속성들의 무한성, 그리고 그의 자유_의지성이라는 사실에 관한 뿌리 깊은 무지함에 네가 안주하기 때문이다.

공간에서 우주들 도처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행성 피조물은 숫자와 종류에서 거의 무한에 가깝고, 그들의 지능은 너무나 다양하며, 그들의 정신은 너무 제한돼 있고 때로는 너무 조잡하며, 그들의 상상력은 너무 짧고 국한돼 있어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들을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 창조된 지성체가 제법 납득할 수 있는, 법칙의 보편화를 고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 피조물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행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독단적이고 초연하며 종종 냉혹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다짐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에는 모두 목적이 있고, 지성적이고,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고의 선을 고려하는데, 한 개별 존재, 개별 인종, 개별 행성, 또는 심지어 어떤 개별 우주에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고려되는 모든 존재의 복지와 최고 선[善]을 위한 것이다. 한때의 여러 시기에서, 일부 복지가 때로는 전체 복지와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데; 영원성의 궤도에서는 그런 외견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족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그토록 교란시키고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온전히-지혜로운 결정 및 최종 통치의 결과인데, 무한한 정신의 확실한

Urantia mortals through the Thought Adjusters.

3:2.6 (47.4)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 transient force, a shifting power, or a fluctuating energy. The power and wisdom of the Father are wholly adequate to cope with any and all universe exigencies. As the emergencies of human experience arise, he has foreseen them all, and therefore he does not react to the affairs of the universe in a detached way but rather in accordance with the dictates of eternal wisdom and in consonance with the mandates of infinite judgment. Regardless of appearances, the power of God is not functioning in the universe as a blind force.

3:2.7 (47.5) Situations do arise in which it appears that emergency rulings have been made, that natural laws have been suspended, that misadaptations have been recognized, and that an effort is being made to rectify the situation; but such is not the case. Such concepts of God have their origin in the limited range of your viewpoint, in the finiteness of your comprehension, and in the circumscribed scope of your survey; such misunderstanding of God is due to the profound ignorance you enjoy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higher laws of the realm, the magnitude of the Father's character, the infinity of his attributes, and the fact of his free-willness.

3:2.8 (47.6) The planetary creatures of God's spirit indwelling,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 universes of space, are so nearly infinite in number and order, their intellects are so diverse, their minds are so limited and sometimes so gross, their vision is so curtailed and localized,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ormulate generalizations of law adequately expressive of the Father's infinite attributes and at the same time to any degree comprehensible to these created intelligences. Therefore, to you the creature, many of the acts of the all-powerful Creator seem to be arbitrary, detached, and not infrequently heartless and cruel. But again I assure you that this is not true. God's doings are all purposeful, intelligent, wise, kind, and eternally considerate of the best good, not always of an individual being, an individual race, an individual planet, or even an individual universe; but they are for the welfare and best good of all concerned,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In the epochs of time the welfare of the part may sometimes appear to differ from the welfare of the whole; in the circle of eternity such apparent differences are nonexistent.

3:2.9 (48.1) We are all a part of the family of God, and we must therefore sometimes share in the family discipline. Many of the acts of God which so disturb and confuse us are the result of the decisions and final rulings of all-wisdom,

뜻에 대한 선택을 이행하도록, 완전한 인격체의 결정을 시행하도록, **공동 행위자**에게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완전한 인격체의 관찰, 통찰력, 및 배려는, 방대하고 광범한 전체 창조의 영원한 최고 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너희 존재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제한조건들, 그리고 너희의 단절되고 부분적이고 유한적이고 조잡하고 매우 물질적인 관점,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함을 너희가 보거나 납득하거나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성립시키는데, 너희에게는 그런 신성한 행위가 압도적인 잔인성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의 동료 피조물의 안락함과 복지에 대해, 즉 행성의 행복과 개인의 번영에 대해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목적을 오해하는 것은, 인간적 식견의 한계 때문이요, 너희의 제한된 이해력 및 유한한 납득력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 행위가 아닌 것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발생한다.

신성한 전능성은 **하나님**의 인격의 다른 속성들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권능은 대개 영적 우주 형태화에서 세 가지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서만 제한 받는다:

1.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따라서.

2.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비로운 사역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 인격체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의 정의와 응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은 무제한이고, 본성은 신성하고, 뜻은 최종적이고, 속성은 무한하고, 지혜는 영원하며,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질은, **신격** 안에 통합돼 있고, **낙원 삼위일체** 안에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 안에 보편적으로 표현돼 있다. 그 외에, **낙원** 및 **하보나** 중앙우주의 바깥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을 진화하는 **지존자**의 현존이 제한하고, **궁극자**의 결말에 이른 현존이 조절하며, 세 실존 **절대자**가--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조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그렇게 제한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神)의 정신은 모든 피조물의 생각을 의식하고 그것을 밝히 안다. 사건에 대한 그의 지식은 보편적이고 완전

empowering the Conjoint Actor to execute the choosing of the infallible will of the infinite mind, to enforce the decisions of the personality of perfection, whose survey, vision, and solicitude embrace the highest and eternal welfare of all his vast and far-flung creation.

3:2.10 (48.2) Thus it is that your detached, sectional, finite, gross, and highly materialistic viewpoint and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nature of your being constitute such a handicap that you are unable to see, comprehend, or know the wisdom and kindness of many of the divine acts which to you seem fraught with such crushing cruelty, and which seem to be characterized by such utter indifference to the comfort and welfare, to the planetary happiness and personal prosperity, of your fellow creatures. It is because of the limits of human vision, it is because of your circumscribed understanding and finite comprehension, that you misunderstand the motives, and pervert the purposes, of God. But many things occur on the evolutionary worlds which are not the personal doings of the Universal Father.

3:2.11 (48.3) The divine omnipotence is perfectly co-ordinated with the other attributes of the personality of God. The power of God is, ordinarily, only limited in its universe spiritual manifestation by three conditions or situations:

3:2.12 (48.4) 1. By the nature of God, especially by his infinite love, by truth, beauty, and goodness.

3:2.13 (48.5) 2. By the will of God, by his mercy ministry and fatherly relationship with th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3:2.14 (48.6) 3. By the law of God, by the righteousness and justice of the eternal Paradise Trinity.

3:2.15 (48.6) God is unlimited in power, divine in nature, final in will, infinite in attributes, eternal in wisdom, and absolute in reality. But all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unified in Deity and universally expressed in the Paradise Trinity and in the divine Sons of the Trinity. Otherwise, outside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everything pertaining to God is limited by the evolutionary presence of the Supreme, conditioned by the eventuating presence of the Ultimate, and co-ordinated by the three existential Absolutes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nd God's presence is thus limited because such is the will of God.

3. GOD'S UNIVERSAL KNOWLEDGE

3:3.1 (48.8) “God knows all things.” The divine mind is conscious of, and conversant with, the thought of all creation. His knowledge of events is

하다. 그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실체들은 그의 일부분이며; “구름을 저울로 다는 그분은 지식에서도 완전하시다.” “**주**의 눈이 어디든지 있다.” 너희의 위대한 선생이 하찮은 참새에 대해, “참새 한 마리라도 내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너희 머리카락조차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고 말했다. “그는 별의 숫자를 알려주시며; 그것들 전부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만유의 아버지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간의 별과 행성의 숫자를 실제로 아는 인격체시다. 온갖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식하신다. 그가 또한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슬픔을 안다.” “**주**는 하늘에서 보시며; 사람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시는데; 자신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자를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각 피조물 자녀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다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 떨어진 우리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길에 정통하시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열려 있다.” 그리고 “그가 너의 구조{構造}를 아시며; 내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든지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무제한의 능력을 소유하시며; 그의 의식은 보편적이다. 그의 인격있는 회로는 모든 인격체를 포함하며, 심지어 하급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식은, 하강하는 계열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보충되고, 내주하는 **사도 조율사**들을 통해서 직접 보충된다. 그리고 더욱이, **무한한 영**이 항상 어디든지 현존한다.

우리는 죄에 속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알기로 선택하셨는지 아닌지를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의 자유 의지 행위를 미리 아시더라도, 그런 예지{豫知}는 자녀들의 자유를 조금도 빼기시키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실만한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이다.

전능성은, 행할 수 없는 것, 즉 신{神} 답지 않은 행위를 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지성{全知性}도, 알 수 없는 것을 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문장은 유한한 정신에게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의 범위와 한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universal and perfect. The divine entities going out from him are a part of him; he who “balances the clouds” is also “perfect in knowledge.” “The eyes of the Lord are in every place.” Said your great teacher of the insignificant sparrow, “One of them shall not fall to the ground without my Father’s knowledge,” and also,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He tell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3:3.2 (49.1) The Universal Father is the only personality in all the universe who does actually know the number of the stars and planets of space. All the worlds of every universe are constantly within the consciousness of God. He also says: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I have heard their cry, and I know their sorrows.” For “the Lord looks from heaven; he beholds all the sons of men; from the place of his habitation he looks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Every creature child may truly say: “He knows the way I take, and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God knows our downsittings and our uprisings; he understands our thoughts afar off and is acquainted with all our ways.”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 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And it should be a real comfort to every human being to understand that “he knows your frame; he remembers that you are dust.” Jesus, speaking of the living God, said, “Your Father knows what you have need of even before you ask him.”

3:3.3 (49.2) God is possessed of unlimited power to know all things; his consciousness is universal. His personal circuit encompasses all personalities, and his knowledge of even the lowly creatures is supplemented indirectly through the descending series of divine Sons and directly throug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And furthermore, the Infinite Spirit is all the time everywhere present.

3:3.4 (49.3) We are not wholly certain as to whether or not God chooses to foreknow events of sin. But even if God should foreknow the freewill acts of his children, such foreknowledge does not in the least abrogate their freedom. One thing is certain: God is never subjected to surprise.

3:3.5 (49.4) Omnipotence does not imply the power to do the nondoable, the ungodlike act. Neither does omniscience imply the knowing of the unknowable. But such statements can hardly be made comprehensible to the finite mind. The creature can hardly understand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will of the Creator.

4. 하나님의 무제한성

4. GOD'S LIMITLESSNESS

우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거기에 자신을 연속

3:4.1 (49.5) The successive bestowal of himself

해서 증여하시더라도, 중심 인격 속에 계속 존재하고 머무는 **신격**의 능력의 잠재력 또는 지혜의 저장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아버지**는, **낙원 아들들**, 그에 종속된 여러 창조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증여하신 결과로, 힘, 지혜, 및 사랑의 잠재력에서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도 줄지 않으며, 그의 영광스런 인격의 어떤 속성도 뺏기지 않으신다.

새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새로운 인력 조절이 요구되지만, 비록 창조가 무기한으로 영원하게, 심지어 무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결국에는 물질창조가 제한조건 없이 존재하게 된다고 해도, **낙원 섬**이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그런 무한한 우주에 대한 지배와 통제와 조정에 충분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끝없는 우주에 무제한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증여한 후에, **무한자**는 여전히 같은 정도의 힘과 에너지로 넘치게 채워질 것이며; **무조건 절대자**는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마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이 우주 저 우주에 기증품으로 쏟아 부어지기 이전처럼, 동일한 무한한 잠재력을 그대로 소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경우도 그렇다: 그 영역의 사색하는 이들에게 정신이 그토록 자유롭게 분배된다는 사실이, 신성한 지혜의 중앙 근원을 조금도 허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가 배가{倍加}되고 그 영역의 존재의 숫자가 납득 한계까지 늘어날 때, 이 높거나 낮은 계층의 존재에게 정신이 증여되는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해도, **하나님**의 중심 인격은,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온전히-지혜로운 정신을 여전히 계속 지니실 것이다.

너희의 세계 및 다른 세계들의 남녀에게 내주하도록 **하나님**이 영{靈} 사자{使者}들을 자신으로부터 내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전능한 영 인격체로서 작용하는 그의 역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며; 그가 보낼 수 있고 또 보내게 될 그런 영 **관찰자**의 범위와 숫자에는 결코 아무 제한도 없다. 피조물에게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일은, 신성하게 재능을 받은 이 필사자들을 위한, 점진적으로 연속해서 실존할, 생각조차 못할 끝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역하는 이 영 실체들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분배하는 이 일은, 온전히-지혜로운, 전지{全知}한, 그리고 전능한 **아버지**의 인격자 안에 머무는 진리와 지식의 지혜 및 완전성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는다.

시간세계의 필사자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다. 내가 **신격**의 바로 그 거주 장소 근처로부터 나왔더라도, 나는 신성한 속성 가운데 다수의 무한성에 관해 완전히 이해하면서 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무한한 정신만이

upon the universes as they are brought into being in no wise lessens the potential of power or the store of wisdom as they continue to reside and repose in the central personality of Deity. In potential of force, wisdom, and love, the Father has never lessened aught of his possession nor become divested of any attribute of his glorious personality as the result of the unstinted bestowal of himself upon the Paradise Sons, upon his subordinate creations, and upon the manifold creatures thereof.

3:4.2 (49.6) The creation of every new universe calls for a new adjustment of gravity; but even if creation should continue indefinitely, eternally, even to infinity, so that eventually the material creation would exist without limitations, still the power of control and co-ordination reposing in the Isle of Paradise would be found equal to, and adequate for, the mastery, control, and co-ordination of such an infinite universe. And subsequent to this bestowal of limitless force and power upon a boundless universe, the Infinite would still be surcharged with the same degree of force and energy; the Unqualified Absolute would still be undiminished; God would still possess the same infinite potential, just as if force, energy, and power had never been poured forth for the endowment of universe upon universe.

3:4.3 (50.1) And so with wisdom: The fact that mind is so freely distributed to the thinking of the realms in no wise impoverishes the central source of divine wisdom. As the universes multiply, and beings of the realms increase in number to the limits of comprehension, if mind continues without end to be bestowed upon these beings of high and low estate, still will God's central personality continue to embrace the same eternal, infinite, and all-wise mind.

3:4.4 (50.2) The fact that he sends forth spirit messengers from himself to indwell the men and women of your world and other worlds in no wise lessens his ability to function as a divine and all-powerful spirit personality; and there is absolutely no limit to the extent or number of such spirit Monitors which he can and may send out. This giving of himself to his creatures creates a boundless, almost inconceivable future possibility of progressive and successive existences for these divinely endowed mortals. And this prodigal distribution of himself as these ministering spirit entities in no manner diminishes the wisdom and perfection of truth and knowledge which repose in the person of the all-wise, all-knowing, and all-powerful Father.

3:4.5 (50.3) To the mortals of time there is a future, but God inhabits eternity. Even though I hail from near the very abiding place of Deity, I cannot presume to speak with perfection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infinity of many of the divine

실존의 무한성과 행위의 영원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필사적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무궁하심을 알 길이 없다. 유한한 정신은, 그런 절대 진리 또는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방금 말한 이 유한한 인간도, 그런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풍성하고 경감되지 않은 감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곧 글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의 질(質)이 무제한임에도, 그런 체험의 양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역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관련된 능력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다.

무한한 특성에 대한 유한한 평가가, 피조물의 제한된 논리적 수용력을 훨씬 초월하는데, 그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곧 그의 속에 무한성의 단편이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관계 전체는, 시공우주 사회학,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곧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애정에서-- 실제로 체험된다.

5. 아버지의 최상의 통치

하보나 이후의 창조계와 접촉할 때,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최종 권한을 직접 전달함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들 및 그 하위(下位) 인격체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자유 의지로 행하신다.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 신(神)의 정신이 선택해야 한다면, 위임된 권능을 모두 직접 행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조치는 신성한 신뢰를 충족시키도록 위임된 그 인격체가 실패한 결과로 발생될 뿐이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그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보된 신의 권능과 잠재력 한계 내에서, **아버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선택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시며; 그 선택은 항상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우주 조직을 통해 아래쪽으로 **행성 왕자**에서 끝나는, 중단 없는 통치자들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방대한 영토에 속하는 진화 세계의 운명을 감독한다. 이런 외침은 단순한 시적(詩的) 표현이 아니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다.” “그가 왕을 제거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신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하신다.”

사람의 마음 속에 관심사가 생길 때, **만유의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행성의 운행과 운명에서는 신성한 계획이 우세하며; 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한다.

attributes. Infinity of mind alone can fully comprehend infinity of existence and eternity of action.

3:4.6 (50.4) Mortal man cannot possibly know the infinitude of the heavenly Father. Finite mind cannot think through such an absolute truth or fact. But this same finite human being can actually *feel* — literally experience — the full and undiminished impact of such an infinite Father's LOVE. Such a love can be truly experienced, albeit while quality of experience is unlimited, quantity of such an experience is strictly limited by the human capacity for spiritual receptivity and by the associated capacity to love the Father in return.

3:4.7 (50.5) Finite appreciation of infinite qualities far transcends the logically limited capacities of the creature because of the fact that mortal man is made in the image of God — there lives within him a fragment of infinity. Therefore man's nearest and dearest approach to God is by and through love, for God is love. And all of such a unique relationship is an actual experience in cosmic sociology, the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 the Father-child affection.

5. THE FATHER'S SUPREME RULE

3:5.1 (50.6) In his contact with the post-Havona creations, the Universal Father does not exercise his infinite power and final authority by direct transmittal but rather through his Sons and their subordinate personalities. And God does all this of his own free will. Any and all powers delegated, if occasion should arise, if it should become the choice of the divine mind, could be exercised direct; but, as a rule, such action only takes place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delegated personality to fulfill the divine trust. At such times and in the face of such default and within the limits of the reservation of divine power and potential, the Father does act independent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his own choice; and that choice is always one of unfailing perfection and infinite wisdom.

3:5.2 (51.1) The Father rules through his Sons; on down through the universe organization there is an unbroken chain of rulers ending with the Planetary Princes, who direct the destinies of the evolutionary spheres of the Father's vast domains. It is no mere poetic expression that exclaims: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He removes kings and sets up kings.”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3:5.3 (51.2) In the affairs of men's hearts the Universal Father may not always have his way; but in the conduct and destiny of a planet the divine plan prevails; the eternal purpose of wisdom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³는 누구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너희가 다양한 작업을 훑어보고 하나님의 거의 끝없는 창조계의 압도적 광대함을 구경할 때, 그의 탁월성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의 낙원 중심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가게시고, 모든 지성적 존재의 인정 많은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 안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며, “그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다.”

인생의 불확실성과 실존의 변천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개념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하는 모든 피조물 생애는, 불가피한 어떤 것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1. 용기가--곧 성품의 강인함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난과 맞붙어 싸우고 실패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2. 이타심이--곧 자기 동료에 대한 봉사--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직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을 삶의 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3. 희망이--곧 숭고한 신뢰가--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 실존은, 불안정성과 되풀이되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직면해야만 된다.

4. 신앙이--곧 인간 사고가 최상으로 단언하는 것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정신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적게 알고 있다는 골치 아픈 곤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5.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오류가 현존하고 허위(虛僞)가 항상 가능한 어떤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6. 이상주의가--곧 신성에 접근하는 개념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 즉 더 나은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환경에서 분투해야 한다.

7. 충성심이--곧 가장 고귀한 의무에 대한 헌신--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 한 가운데서 꺾어져야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의무를 저버릴 위험이 암시된 곳에서 발휘된다.

8. 비(非)이기주의가--곧 자아_망각의 영성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적 사람은, 도망칠 수 없는 자아의, 인정받음과 명예를 향한 끊임 없는 요구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만 된다. 사람은, 버려야 할 자기 생활이 없었다면, 신성한 삶을 역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조함으로써 선(善)을 고양(高揚)시키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악이 없었다면, 사람은 정의를 붙잡기

and love triumphs.

3:5.4 (51.3) Said Jesus: “My Father, who gave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As you glimpse the manifold workings and view the staggering immensity of God’s well-nigh limitless creation, you may falter in your concept of his primacy, but you should not fail to accept him as securely and everlastingly enthroned at the Paradise center of all things and as the beneficent Father of all intelligent beings. There is but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in all,”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consist.”

3:5.5 (51.4) The uncertainties of life and the vicissitudes of existence do not in any manner contradict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God. All evolutionary creature life is beset by certain inevitabilities. Consider the following:

3:5.6 (51.5) 1. Is *courage* — strength of character — desirable? Then must man be reared in an environment which necessitates grappling with hardships and reacting to disappointments.

3:5.7 (51.6) 2. Is *altruism* — service of one’s fellows — desirable? Then must life experience provide for encountering situations of social inequality.

3:5.8 (51.7) 3. Is *hope* — the grandeur of trust — desirable? Then human existence must constantly be confronted with insecurities and recurrent uncertainties.

3:5.9 (51.8) 4. Is *faith* — the supreme assertion of human thought — desirable? Then must the mind of man find itself in that troublesome predicament where it ever knows less than it can believe.

3:5.10 (51.9) 5. Is the *love of truth* and the willingness to go wherever it leads, desirable? Then must man grow up in a world where error is present and falsehood always possible.

3:5.11 (51.10) 6. Is *idealism* — the approaching concept of the divine — desirable? Then must man struggle in an environment of relative goodness and beauty, surroundings stimulative of the irrepressible reach for better things.

3:5.12 (51.11) 7. Is *loyalty* — devotion to highest duty — desirable? Then must man carry on amid the possibilities of betrayal and desertion. The valor of devotion to duty consists in the implied danger of default.

3:5.13 (51.12) 8. Is *unselfishness* — the spirit of self-forgetfulness — desirable? Then must mortal man live face to face with the incessant clamoring of an inescapable self for recognition and honor. Man could not dynamically choose the divine life if there were no self-life to forsake. Man could never lay saving hold on righteousness if there were no potential evil to exalt and differentiate the good by

위해, 지니고 있는 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9. 기쁨이--곧 행복한 만족감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스런 양자택일과 고난의 가능성이 항상_현존하여 체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 전반에 걸쳐서, 각 단일체마다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부분의 생존은, 전체의 계획 및 목적과 협동함, 즉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실책(곧 어리석은 판단의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성체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10억 개의 완전한 세계가 있지만, 진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체험이 없는 지성체는, 처음에는 한결같이 현명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가 계획적인 부도덕한 판단을 의식적으로 시인하고 알면서 받아들일 때에만, 잘못된 판단(악)의 가능성이 죄가 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에 대한 온전한 헤아림은, 완성된 신성한 우주에 내재돼 있다. **하보나** 세계의 거주민에게는, 선택을 자극하기 위한 상대적 가치 수준의 잠재력이 필요치 않으며; 그런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고 사고(思考)를_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을 때에도 선한 것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한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본성과 영적 신분에서, 그렇게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선천적 신분의 범위 내에서만 향상을 체험으로 얻는다. 필사적 사람은, 상승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기 신분조차 자신의 신앙과 희망으로 얻는다. 인간의 정신이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획득하는 신성한 모든 것은 체험으로 달성되며; 그것은 인격있는 체험이라는 실체이고, 따라서 **하보나**의 과오 없는 인격체들의 선천적 선함 및 의로움과는 대조적인 어떤 독특한 소유물이다.

하보나의 피조물은 선천적으로 용감하지만, 인간의 감각에서 볼 때에는 용감함이 없다. 그들은 천부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즐거운 미래를 기대하는 자들이지만, 불확실한 진화 구체(球體)를 신뢰하는 필사자의 정교한 방식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우주의 안정성을 신뢰하지만,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신분에서 **낙원**의 입구를 향해 올라가게 하는, 구원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혼을_구원하는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지만, 이미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충성되지만, 태만의 유혹에도 전심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contrast.

3:5.14 (51.13) 9. Is *pleasure* — the satisfaction of happiness — desirable? Then must man live in a world where the alternative of pain and the likelihood of suffering are ever-present experiential possibilities.

3:5.15 (52.1) Throughout the universe, every unit is regarded as a part of the whole. Survival of the part is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the plan and purpose of the whole, the wholehearted desire and perfect willingness to do the Father's divine will. The only evolutionary world without error (the possibility of unwise judgment) would be a world without *free* intelligence. In the Havona universe there are a billion perfect worlds with their perfect inhabitants, but evolving man must be fallible if he is to be free. Free and inexperienced intelligence cannot possibly at first be uniformly wise. The possibility of mistaken judgment (evil) becomes sin only when the human will consciously endorses and knowingly embraces a deliberate immoral judgment.

3:5.16 (52.2) The full appreciat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inherent in the perfection of the divine universe. The inhabitants of the Havona worlds do not require the potential of relative value levels as a choice stimulus; such perfect beings are able to identify and choose the good in the absence of all contrastive and thought-compelling moral situations. But all such perfect beings are, in moral nature and spiritual status, what they are by virtue of the fact of existence. They have experientially earned advancement only within their inherent status. Mortal man earns even his status as an ascension candidate by his own faith and hope. Everything divine which the human mind grasps and the human soul acquires is an experiential attainment; it i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and is therefore a unique possession in contrast to the inherent goodness and righteousness of the inerrant personalities of Havona.

3:5.17 (52.3) The creatures of Havona are naturally brave, but they are not courageous in the human sense. They are innately kind and considerate, but hardly altruistic in the human way. They are expectant of a pleasant future, but not hopeful in the exquisite manner of the trusting mortal of the uncertain evolutionary spheres. They have faith in the stability of the universe, but they are utter strangers to that saving faith whereby mortal man climbs from the status of an animal up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y love the truth, but they know nothing of its soul-saving qualities. They are idealists, but they were born that way; they are wholly ignorant of the ecstasy of becoming such by exhilarating choice. They are loyal, bu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e thrill of wholehearted

의무에 헌신하는 전율을 체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호전적 자아를 훌륭하게 정복하는 그런 체험 수준을 획득한 적이 전혀 없다.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잠재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만족감의 단맛은 납득하지 못한다.

and intelligent devotion to duty in the face of temptation to default. They are unselfish, but they never gained such levels of experience by the magnificent conquest of a belligerent self. They enjoy pleasure, but they do not comprehend the sweetness of the pleasure escape from the pain potential.

6. 아버지의 탁월성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자기 비움, 즉 완숙한 관대함으로 권세를 포기하고 능력을 위임하지만, 여전히 근본이시며; 그의 손은 우주의 영역들의 환경을 움직이는 전능한 지렛대를 잡고 있으며; 밖으로 뻗친, 소용돌이치는, 그리고 항상_돌고 있는 창조의 복지(福祉)와 운명에 대한 도전 받을 수 없는 권세를 지니고, 자신의 영원한 목적 때문이라면, 전능한 거부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모든 최종 결정을 확보해 왔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창조의 근본 실상이다. 우주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우주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스스로_실존하지 않는다. 우주는 창조된 작품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창조주**의 뜻에 종속된다. **하나님** 뜻은 신성한 진리, 살아있는 사랑이며; 그러므로 진화 우주를 완성시키는 창조계의 특징은 선함이며--곧 신성(神性)에 가까움이며; 잠재적 악이다--곧 신성으로부터 멀어짐이다.

모든 종교 철학은, 조만간, 통일된 우주 통치, 즉 유일한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것이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의 결과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의 생명과 시공우주 정신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그것들이 형태화 되는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하위 실존 계층의 언어로는 일관되게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은, 비교적 높은 사고(思考) 체계 및 의도적 뜻의 실체를 알아봄으로써만 참되게 납득될 수 있다. **만유의 아버지**가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기계론적 철학자는, 보편적이고 주권적인 의지, 즉 우주 법칙을 고집하여 만들면서 자신이 그 토록 깊이 경외하는 바로 그 주권적 의지 관념을 거부하기로 선언한다. 그런 법칙들이 스스로_움직이고 스스로_해석한다고 기계론자들이 상상할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경외심을, 그 법칙의 **창조주**에게 얼마나 많이 바치고 있는지!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 개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일은 큰 실수이지만, 심지어 그것도,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관념을 **기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어리석지는 않다.

낙원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나? 나는 모른다. **창조주 아들**들은 필사자가 하는 것처럼 가장 분명

6. THE FATHER'S PRIMACY

3:6.1 (52.4) With divine selflessness, consummate generosity, the Universal Father relinquishes authority and delegates power, but he is still primal; his hand is on the mighty lev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universal realms; he has reserved all final decisions and unerringly wields the all-powerful veto scepter of his eternal purpose with unchallengeable authority over the welfare and destiny of the outstretched, whirling, and ever-circling creation.

3:6.2 (52.5) The sovereignty of God is unlimited; it is the fundamental fact of all creation. The universe was not inevitable. The universe is not an accident, neither is it self-existent. The universe is a work of creation and is therefore wholly subject to the will of the Creator. The will of God is divine truth, living love; therefore are the perfecting creation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characterized by goodness — nearness to divinity; by potential evil — remoteness from divinity.

3:6.3 (53.1) All religious philosophy, sooner or later, arrives at the concept of unified universe rule, of one God. Universe causes cannot be lower than universe effects. The source of the streams of universe life and of the cosmic mind must be above the levels of their manifestation. The human mind cannot be consistently explained in terms of the lower orders of existence. Man's mind can be truly comprehended only by recognizing the reality of higher orders of thought and purposive will. Man as a moral being is inexplicable unless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s acknowledged.

3:6.4 (53.2) The mechanistic philosopher professes to reject the idea of a universal and sovereign will, the very sovereign will whose activity in the elaboration of universe laws he so deeply reverences. What unintended homage the mechanist pays the law-Creator when he conceives such laws to be self-acting and self-explanatory!

3:6.5 (53.3) It is a great blunder to humanize God, except in the concept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but even that is not so stupid as completely to *mechanize* the idea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3:6.6 (53.4) Does the Paradise Father suffer? I do not know. The Creator Sons most certainly can

히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렇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한정된 의미에서 볼 때 괴로워하신다. 나는 **만유의 아버지**도 괴로워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러신지**는 이해할 수 없으며; 아마 인격 회로를 통해서, 또는 **사고 조율사**의 개체성 그리고 그의 영원한 본성인 다른 여러 증여를 통해서일 것이다. 그는 필사자 인종에 대해, “너희의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말씀해 오셨다. 그는 아버지답고 호의적인 이해심을 분명히 체험하시며; 진실로 괴로워하시겠지만, 나는 그 본질을 납득하지 못한다.

온갖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는, 권능, 구조, 에너지, 과정, 원형(原型), 원칙, 현존, 및 이상화(理想化)된 실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以上)이며; 인격있으며; 독립된 뜻을 행사하고, 신성(神性)을 자아_의식하고, 창조적 정신의 명령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의 실현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우주에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더욱 인격있는 이 특징 전체는, 너희의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됐을 때 증여 생애에서 드러났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들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시며; **영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들이 정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속_상승하는 모험을 하도록, 자신의 은혜 사역을 통해서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신다.

[**만유의 아버지**의 계시를 제시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인자**로서, 나는 **신격**의 속성들에 대한 본 문서에 관여해 왔다.]

and sometimes do, even as do mortals.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suffer in a modified sense. I think the Universal Father does, but I cannot understand *how*; perhaps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or through the individualit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other bestowals of his eternal nature. He has said of the mortal races, “In all your afflictions I am afflicted.” He unquestionably experiences a fatherly and sympathetic understanding; he may truly suffer, but I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thereof.

3:6.7 (53.5) The infinite and eternal Ru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power, form, energy, process, pattern, principle, presence, and idealized reality. But he is more; he is personal; he exercises a sovereign will, experiences self-consciousness of divinity, executes the mandates of a creative mind, pursues the satisfaction of the realization of an eternal purpose, and manifests a Father’s love and affection for his universe children. And all these more personal traits of the Father can be better understood by observing them as they were revealed in the bestowal life of Michael, your Creator Son, while he was incarnated on Urantia.

3:6.8 (53.6) God the Father loves men; God the Son serves men; God the Spirit inspires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to the ever-ascending adventure of finding God the Father by the ways ordained by God the Sons through the ministry of the grace of God the Spirit.

3:6.9 (53.7) [Being the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 have continued with this statement of the attributes of Deity.]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 003

유랜시아 책

005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섹션

소개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
2. 하나님과 자연계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4.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5.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소개

만유의 아버지는 온갖 우주의 물질적, 지적, 및 영적 현상과 관계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항상 집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온전한-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하셨다. **낙원 신격**들 및 최고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실제로 매우 잘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을지 의심스럽다. **낙원**의 고양{高揚}된 시민조차, **신격**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성에 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

완전한 **하보나** 중앙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순전히 신성한 본성의 충족에 있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된다. **하보나**는, **낙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위한 최종 학교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주를 위한 창조 원형{原型}으로서 이바지할 것이며; 아무튼, 그런 숭고한 창조물은,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주**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케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에 도달한 뒤에는 그 후의 일을 위해 어떤 알려지지 않

PAPER 4
GOD'S RELATION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niverse Attitude of the Father
2. God and Nature
3. God's Unchanging Character
4. The Realization of God
5. Erroneous Ideas of God

INTRODUCTION

4:0.1 (54.1) THE Universal Father has an eternal purpose pertaining to th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phenomena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ch he is executing throughout all time. God created the universes of his own free and sovereign will, and he created them in accordance with his all-wise and eternal purpose. It is doubtful whether anyone except the Paradise Deities and their highest associates really knows very much about the eternal purpose of God. Even the exalted citizens of Paradise hold very diverse opinions about the nature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Deities.

4:0.2 (54.2) It is easy to deduce that the purpose in creating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of Havona was purely the satisfaction of the divine nature. Havona may serve as the pattern creation for all other universes and as the finishing school for the pilgrims of time on their way to Paradise; however, such a supernal creation must exist primarily for the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the perfect and infinite Creators.

4:0.3 (54.3) The amazing plan for perfecting evolutionary mortals and, after their attainment of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providing

은 더 많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그 계획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 및 그 여러 하위부서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필사자를 영성화{靈性化} 시키고 훈련시키려는 이 상승 개요는, 결코 우주 지성체들의 독점 업무가 아니다. 정말로, 시간을 점령하고 천상(天上)의 무리의 에너지를 편입시키는 매혹적인 다른 일이 많이 있다.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

유란시아 거주민은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 왔다. 너희 세계에서 신성하게 완성하고 있는 섭리가 있지만, 그 섭리는, 많은 필사자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해온, 유치하고 독단적이며 물질적인 사역{事役}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맞물린 활동에 있는데, 그들은 시공우주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해 너희가 생각할 때, 우주의 표어가 진보임을 너희가 알아채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겠는가? 인간 종족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긴 세월 동안 분투해 왔다. 수천 년의 이 모든 기간 내내, **섭리**가 점진적 진화 계획을 감당해 왔다. 실제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대립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잘못된 개념에서만 그렇다. 신의 섭리는,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 참된 인간 진보의 정 반대 위치에 놓인 적이 결코 없다. **섭리**는 최고 **입법자**{立法者}의 불변하고 완전한 본성과 반드시 일치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모든 계명은 공정합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 하늘들에 확립돼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천국에 영원히 정착돼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해당되며; 당신이 땅을 지으셨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창조주**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고 피조물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력과 인격체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영원한 팔이 받치고 있다.” “**지고자**{至高者}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善}을 이룸을 우리가 아는데,” “**주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살피고, 그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때, 그분이 “**아들**들을 보내시고, 그것들이 창조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

further training for some undisclosed future work, does seem to be, at present, one of the chief concer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ir many subdivisions; but this ascension scheme for spiritualizing and training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is by no means the exclusive occupation of the universe intelligences. There are, indeed, many other fascinating pursuits which occupy the time and enlist the energies of the celestial hosts.

1. THE UNIVERSE ATTITUDE OF THE FATHER

4.1.1 (54.4) For ages the inhabitants of Urantia have misunderstood the providence of God. There is a providence of divine outworking on your world, but it is not the childish, arbitrary, and material ministry many mortals have conceived it to be. The providence of God consists in the interlocking activities of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spirits who, in accordance with cosmic law, unceasingly labor for the honor of God and for the spiritual advancement of his universe children.

4.1.2 (54.5) Can you not advance in your concept of God's dealing with man to that level where you recognize that the watchword of the universe is progress? Through long ages the human race has struggled to reach its present position. Throughout all these millenniums Providence has been working out the plan of progressive evolution. The two thoughts are not opposed in practice, only in man's mistaken concepts. Divine providence is never arrayed in opposition to true human progress, either temporal or spiritual. Providence is always consistent with the unchanging and perfect nature of the supreme Lawmaker.

4.1.3 (55.1) “God is faithful” and “all his commandments are just.” “His faithfulness is established in the very skies.” “Forever, O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Your faithfulness is to all generations; you have established the earth and it abides.” “He is a faithful Creator.”

4.1.4 (55.2) There is no limitation of the forces and personalities which the Father may use to uphold his purpose and sustain his creatures. “The eternal God is 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Behold, he who keeps us shall neither slumber nor sleep.”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ver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s.”

4.1.5 (55.3) Go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when new worlds are born, he “sends forth his Sons and they are created.” God not only creates, but he “preserves them all.” God

신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 물체와 모든 영적 존재를 변함없이 유지하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돼 있다. 겉으로 보기에 불안정한 그 한가운데에 안정성이 있다.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의 에너지 격변과 물리적 변동 한가운데에, 기초 질서와 안전함이 있다.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를 관리하는 데서 물러나신 적이 없으며; 쉬고 있는 **신격**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체 창조물의 유지자로서의 현재 역할에서 물러난다면, 우주는 즉시 붕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과거의 먼 시대들 동안,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신다. 신성한 범위는 영원성의 궤도 주변까지 확장한다. 우주는, 긴 세월 동안 작동하다가 기능을 멈추는 그런 시계태엽처럼 감겨져 있지 않으며; 만물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아버지**는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은 순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다. “그가 북쪽을 빈 공간으로 늘어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는, 우주 경영의 일상적 직무에서 궁극적 일치를 발견할 수 있고, 멀리 도달하는 심오한 협조를 탐지할 수 있다. 필사 정신에게 흐트러져 있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이, 내가 이해하기로는 질서정연하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매우 많은 것이 우주에서 일어난다. 나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인지된 힘, 에너지, 정신, 모론시아, 영, 그리고 인격체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다소 정통해 있다. 나는 이 대행기관들과 인격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며, 광우주의 공인된 영 지성체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내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가늠할 수 없는 시공우주 반응에 변함없이 직면한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힘, 에너지, 지능, 그리고 영들의 상호연합체의, 겉으로 보기에 우연한 결합에 빈번하게 마주친다.

나는,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크계는, **낙원 섬**의 기능발휘에서 직접 발생하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추적하고 분석하기에 아주 적격이다. 나의 곤혹스러움은, 그들의 신비로운 협조자, 즉 잠재성의 세 **절대자**의 실행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마주침으로써 야기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하찮게 만들고 정신을 초월하며 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현존 및 업적의 타이라고 추정하는, 이 복잡한 처리사항을 내가 납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혼돈되고 종종 당황한다.

constantly upholds all things material and all beings spiritual. The universes are eternally stable. There is stability in the midst of apparent instability.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and security in the midst of the energy upheavals and the physical cataclysms of the starry realms.

4.1.6 (55.4) The Universal Father has not withdrawn from the management of the universes; he is not an inactive Deity. If God should retire as the present upholder of all creation, there would immediately occur a universal collapse. Except for God,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reality*. At this very moment, as during the remote ages of the past and in the eternal future, God continues to uphold. The divine reach extends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The universe is not wound up like a clock to run just so long and then cease to function; all things are constantly being renewed. The Father unceasingly pours forth energy, light, and life. The work of God is literal as well as spiritual.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empty space and hangs the earth upon nothing.”

4.1.7 (55.5) A being of my order is able to discover ultimate harmony and to detect far-reaching and profound co-ordination in the routine affairs of universe administration. Much that seems disjointed and haphazard to the mortal mind appears orderly and constructive to my understanding. But there is very much going on in the universes that I do not fully comprehend. I have long been a student of, and am more or less conversant with, the recognized forces, energies, minds, morontias, spirits, and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s. I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how these agencies and personalities operate, and I am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workings of the accredited spirit intelligences of the grand universe. Notwithstanding my knowledge of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s, I am constantly confronted with cosmic reactions which I cannot fully fathom. I am continually encountering apparently fortuitous conspiracies of the interassociation of forces, energies, intellects, and spirits, which I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4.1.8 (55.6) I am entirely competent to trace out and to analyze the working of all phenomena directly resulting from the functioning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o a large extent, the Isle of Paradise. My perplexity is occasioned by encountering what appears to be the performance of their mysterious co-ordinates,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ese Absolutes seem to supersede matter, to transcend mind, and to supervene spirit. I am constantly confused and often perplexed by my inability to comprehend these complex transactions which I attribute to the presences and performanc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Deity Absolute, and the Universal Absolute.

이 절대자들은 우주에서 널리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현존임에 틀림없는데, 그 우주는, 공간 잠재력 현상에서, 그리고 다른 초월궁극 기능에서, 최상의 조정 및 궁극적 가치를 포함하는 어떤 복잡한 실체 상황에서 만들어진 필요 사항에 대하여, 힘이나 개념 또는 영의 근본존재들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해,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인조차 확실성을 갖고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시공우주 사건 전체 구조의 근저(根底)인 듯한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는, 유기체 통일성 역시 존재한다.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살아있는 이 현존, 즉 이 **입안(立案)된 미완성의 내재(內在)**는, 외견상 관련 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랄 만큼 우연한 협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 때때로 불가해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섭리**— 곧 **지존하신 분**과 **공동 행위자**의 영역—의 기능임에 틀림없다.

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과 형식의 협조와 상호 연합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통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사람과 천사들의 행복을 위해, 아주 다채롭고 외견상 희망 없이 혼란에 빠진, 잡다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및 영적 현상이 결국 반드시 해결되도록 한다고 나는 믿고자 한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시공우주의 외견상 “돌발 사건들”은, **절대자**들을 영원히 조종하는 **무한자**의 시·공간 모험에서 벌어지는 유한한 연극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다.

2. 하나님과 자연계

자연계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물리적 기질이다. **하나님**의 행위 또는 행동은, 지방우주, 성좌,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원형(原型)에 따라서 제한되고 임시로 수정된다. **하나님**은, 널리 퍼지는 총괄우주 전반에 걸쳐서, 명확하고, 변함없고, 변경 불가능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시지만, 진화함으로 전개되는 유한한 기획의 국지적(局地的) 대상과 의도와 계획에 맞춰서, 각 우주, 성좌, 체계, 행성, 및 인격체의 협조적이고 균형잡힌 행위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행동 양식을 수정하신다.

그러므로 필사적 사람이 이해하듯이, 자연계는, 변함없는 **신격** 및 그의 변경 불가능한 법칙의 바탕이 되는 기초와 근본적 배경을 나타내는데, 그 법칙은, 지방우주, 성좌, 체계, 그리고 행성 세력 및 인격체들이 개시하고 실행해 온, 국지적 계획, 목적, 원형, 및 조건이 작용함에 따라서 변경되며, 그 때문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통하여 격변을

4:1.9 (56.1) These Absolutes must be the not-fully-revealed presences abroad in the universe which, in the phenomena of space potency and in the function of other superultimates, render it impossible for physicists, philosophers, or even religionists to predict with certainty as to just how the primordials of force, concept, or spirit will respond to demands made in a complex reality situation involving supreme adjustments and ultimate values.

4:1.10 (56.2) There is also an organic unit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ich seems to underlie the whole fabric of cosmic events. This living presence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this Immanence of the Projected Incomplete, is inexplicably manifested ever and anon by what appears to be an amazingly fortuitous co-ordination of apparently unrelated universe happenings. This must be the function of Providence — the realm of the Supreme Being and the Conjoint Actor.

4:1.11 (56.3)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it is this far-flung and generally unrecognizable control of the co-ordination and interassociation of all phases and forms of universe activity that causes such a variegated and apparently hopelessly confused medley of physical, mental, moral, and spiritual phenomena so unerringly to work out to the glory of God and for the good of men and angels.

4:1.12 (56.4) But in the larger sense the apparent “accidents” of the cosmos are undoubtedly a part of the finite drama of the time-space adventure of the Infinite in his eternal manipulation of the Absolutes.

2. GOD AND NATURE

4:2.1 (56.5) Nature is in a limited sense the physical habit of God. The conduct, or action, of God is qualified and provisionally modified by the experimental plans and the evolutionary patterns of a local universe, a constellation, a system, or a planet. God acts in accordance with a well-defined, unchanging, immutable law throughout the wide-spreading master universe; but he modifies the patterns of his ac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e co-ordinate and balanced conduct of each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planet, and pers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objects, aims, and plans of the finite projects of evolutionary unfolding.

4:2.2 (56.6) Therefore, nature, as mortal man understands it, presents the underlying foundation and fundamental background of a changeless Deity and his immutable laws, modified by, fluctuating because of, and experiencing upheavals through, the working of the local plans, purposes, patterns, and conditions which have

겪는다. 예를 들면: **네바돈**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법칙은 이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확립한 계획에 따라서 수정되며;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법칙의 시행은, 너희의 직속 행성 체계인 **사타니아**에 속하고 너희 행성에 거주한 어떤 존재들의 실책, 태만, 및 반란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자연계는 두 가지 시공우주 요소의 시_공간 합성운동인데: 첫째는, **낙원 신격**의 불변성, 완전성, 및 엄정성이며, 둘째는 실험적 계획, 행정적 큰 실책, 반란적인 오류, 개발의 미완성,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낙원** 외부 피조물의 지혜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므로 자연계는, 균일하고 변함없고 웅대하고 경탄할만한 완전성의 실마리를 영원성 궤도로부터 가져오지만; 각 우주에서, 각 행성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서, 이 자연계는 진화 체계 및 우주에 속한 피조물의 행위, 과오, 및 불충성으로 인해 변경되고 제한되고 아마 훼손될지도 모르며; 따라서 자연계는, 항상 변화하는 분위기에 젖어있고, 게다가 변덕스러우며, 하부에서는 안정돼 있더라도, 지방우주의 운영상 과정에 따라서 변화돼야 한다.

자연계는, **낙원**의 완전성을, 마무리되지 않은 우주들의 불충분함, 악, 및 죄로 나눈 결과값이다. 이 비율은, 완전한 세계와 부분적 세계 양쪽을, 영원한 세계와 일시적 세계 양쪽을 그렇게 나타낸다. 꾸준한 진화는, **낙원** 완전성의 내용을 증대시킴으로, 그리고 악과 실책과 상대적 실체의 불일치를 줄임으로 자연계를 수정한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또는 자연계의 세력 중에서 어떤 것에도 직접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자연계의 현상이,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인 **낙원** 기초{基礎} 위에, 점진적 진화라는 불완전성을 덧붙여 놓고, 때때로 폭동을 일삼는 반역의 결과를 덧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란시아** 같은 그런 세계에 나타날 때, 자연계는 온전히-지혜롭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표현, 참된 서술, 충실한 묘사가 결코 될 수 없다.

너희 세계의 경우에 자연계는, 완전한 법칙을 지방우주의 진화 계획이 수정한 것이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연계에 충만하시다는 이유로; 자연계가 보편적이고, 그래서 신성한 능력의 어떤 단면이라는 이유로, 자연계를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런지! 자연계는 또한 시공우주의 진화에서 한 우주 실험의 발달, 성장, 및 진보의 완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been inaugurated and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local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and planetary forces and personalities. For example: As God's laws have been ordained in Nebadon, they are modified by the plans established by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of this local universe; and in addition to all this the operation of these laws has been further influenced by the errors, defaults, and insurrections of certain beings resident upon your planet and belonging to your immediate planetary system of Satania.

4:2.3 (56.7) Nature is a time-space resultant of two cosmic factors: first, the immutability, perfection, and rectitude of Paradise Deity, and second, the experimental plans, executive blunders, insurrectionary errors, incompleteness of development, and imperfection of wisdom of the extra-Paradise creature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Nature therefore carries a uniform, unchanging, majestic, and marvelous thread of perfection from the circle of eternity; but in each universe, on each planet, and in each individual life, this nature is modified, qualified, and perchance marred by the acts, the mistakes, and the disloyalties of th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systems and universes; and therefore must nature ever be of a changing mood, whimsical withal, though stable underneath, a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of a local universe.

4:2.4 (57.1) Nature is the perfection of Paradise divided by the incompleteness, evil, and sin of the unfinished universes. This quotient is thus expressive of both the perfect and the partial, of both the eternal and the temporal. Continuing evolution modifies nature by augmenting the content of Paradise perfection and by diminishing the content of the evil, error, and disharmony of relative reality.

4:2.5 (57.2) God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nature or in any of the forces of nature, for the phenomenon of nature is the superimposition of the imperfections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sometimes, the consequences of insurrectionary rebellion, upon the Paradise foundations of God's universal law. As it appears on such a world as Urantia, nature can never be the adequate expression, the true representation, the faithful portrayal, of an all-wise and infinite God.

4:2.6 (57.3) Nature, on your world, is a qualification of the laws of perfection by the evolutionary plans of the local universe. What a travesty to worship nature because it is in a limited, qualified sense pervaded by God; because it is a phase of the universal and, therefore, divine power! Nature also is a manifestation of the unfinished, the incomplete, the imperfect outworkings of the development, growth, and progress of a universe experiment in cosmic evolution.

자연 세계의 외견상 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결점도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측된 그런 불완전성은, 무한성을 영화로 보여주려고 필름을 계속 돌려서 상영할 때 피할 수 없는 정지_순간들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체를 스쳐 지나가며 훑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성의_촬영대본에 들어있는 바로 이 결손과_중단들이다. 신성이 물질적으로 현시될 때,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에게는 결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오직 필사적 사람이 타고난 눈을 통해서, 즉 시간 세계들에서 보충 대용물인 모론시아 모타의 도움 또는 계시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인간 상상력을 통해서, 그 현상을 보려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일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의 외관을 추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무수한 피조물의 반역, 부정행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는 훼손되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 모습은 시들어 버렸다. 결단코, 자연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너무 오랫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어떤 존재로 생각해 왔다.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으므로, **창조주 아들**은 사람이 행성 창조의 걸작품이 되도록, 이 세상 전체의 통치자가 되도록 의도했는데, 사람이 자신의 더 기초적인 열망에 지배되고 있는 모습, 나무와 돌과 금과 이기적 야망의 우상들 앞에 절하는 장면--이런 지저분한 장면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을 격동시켜서, 사람을 위해 경계하게 만든 것이지, 결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은, 인간 감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반응을 사람이 이해하듯이, 분노하고 화낼 수 없다. 이런 감상은 비열하고 경멸적이며; 인간적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고, 신성하다고는 더욱 할 수 없으며; 그런 태도는,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자비가 넘치는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역과 **캘리개스차** 배신의 멀리_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죄로 격리되지 않은 세계의 경우에는, 진화 종족들이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개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혼돈, 왜곡, 및 개념의 오용을 덜 경험한다.

하나님은, 전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으시다. 그는 전능하시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지혜로우

4:2.7 (57.4) The apparent defects of the natural world are not indicative of any such corresponding defects in the character of God. Rather are such observed imperfections merely the inevitable stop-moments in the exhibition of the ever-moving reel of infinity picturization. It is these very defect-interruptions of perfection-continuity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finite mind of material man to catch a fleeting glimpse of divine reality in time and space.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divinity appear defective to the evolutionary mind of man only because mortal man persists in viewing the phenomena of nature through natural eyes, human vision unaided by morontia mota or by revelation, its compensatory substitute on the worlds of time.

4:2.8 (57.5) And nature is marred, her beautiful face is scarred, her features are seared, by the rebellion, the misconduct, the misticoming of the myriads of creatures who are a part of nature, but who have contributed to her disfigurement in time. No, nature is not God. Nature is not an object of worship.

3. GOD'S UNCHANGING CHARACTER

4:3.1 (57.6) All too long has man thought of God as one like himself. God is not, never was, and never will be jealous of man or any other be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Knowing that the Creator Son intended man to be the masterpiece of the planetary creation, to be the ruler of all the earth, the sight of his being dominated by his own baser passions, the spectacle of his bowing down before idols of wood, stone, gold, and selfish ambition — these sordid scenes stir God and his Sons to be jealous for man, but never of him.

4:3.2 (57.7) The eternal God is incapable of wrath and anger in the sense of these human emotions and as man understands such reactions. These sentiments are mean and despicable; they are hardly worthy of being called human, much less divine; and such attitudes are utterly foreign to the perfect nature and gracious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4:3.3 (58.1) Much, very much, of the difficulty which Urantia mortals have in understanding God is due to the far-reaching consequence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aligastia betrayal. On worlds not segregated by sin, the evolutionary races are able to formulate far better ideas of the Universal Father; they suffer less from confusion,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concept.

4:3.4 (58.2) God repents of nothing he has ever done, now does, or ever will do. He is all-wise as well as all-powerful. Man's wisdom grows out of

시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착오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고, 이런 신{神}의 예지가 창조적 자유 의지를 효과적으로 감독한다.

만유의 아버지는, 나중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 인격체들이 동떨어진 우주에 있더라도 하듯이 공리하여 만드는 자신의 불행한 선택으로, 때로는 **창조주** 부모의 인격에 신성한 슬픔이라는 감정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슬픔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주의 영적_달성 계획 및 필사자_상승 방책들이 그토록 아낌없이 제공해 온 도움을 받아서 영적 수준의 달성에 도달 할 수 있음에도, 자녀들이 실패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확실히 애통하신다.

아버지의 무한한 선{善}은 시간세계의 유한한 정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며; 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든 단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죄가 아닌) 상대적 악과 항상 대조될 수 있게 돼야 한다. 신{神}이 완전히 선하신 것은 필사자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식별될 수 있는데, 오직 공간이 움직일 때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게 초인적이며; 그러므로 그런 신성{神性}의 본질은, 유한한 사람의 정신이 신앙으로 파악할 수 있기도 전에,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처럼, 인격화돼야 한다.

4.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만이 온갖 우주 전체에서 정지해 있고, 자급_자족하고, 변함없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에게는 바깥이 없고, 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과거나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에너지(곧 창조적 영)이고 절대 의지이며, 이 두 가지는 자존적이고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므로, 절대로 독립적이다. **하나님**의 바로 그 정체성은 변화와 상반된다. “나, 곧 **주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너희가 **낙원** 신분을 성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일치에서 변화로, 정지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성에서 유한성으로, 신성한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그리고 통일성에서 이중성 및 삼중성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성에 대한 현시를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신{神}의 불변성이 부동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뜻을 지니신다--그가 뜻이다.

the trials and errors of human experience; God's wisdom consists in the unqualified perfection of his infinite universe insight, and this divine foreknowledge effectively directs the creative free will.

4.3.5 (58.3) The Universal Father never does anything that causes subsequent sorrow or regret, but the will creatures of the planning and making of his Creator personalities in the outlying universes, by their unfortunate choosing, sometimes occasion emotions of divine sorrow in the personalities of their Creator parents. But though the Father neither makes mistakes, harbors regrets, nor experiences sorrows, he is a being with a father's affection, and his heart is undoubtedly grieved when his children fail to attain the spiritual levels they are capable of reaching with the assistance which has been so freely provided by the spiritual-attainment plans and the mortal-ascension policies of the universes.

4.3.6 (58.4) The infinite goodness of the Father i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of time; hence must there always be afforded a contrast with comparative evil (not sin) for the effective exhibition of all phases of relative goodness. Perfection of divine goodness can be discerned by mortal imperfection of insight only because it stands in contrastive association with relative imperfection in the relationships of time and matter in the motions of space.

4.3.7 (58.5) The character of God is infinitely superhuman; therefore must such a nature of divinity be personalized, as in the divine Sons, before it can even be faith-grasped by the finite mind of man.

4. THE REALIZATION OF GOD

4.4.1 (58.6) God is the only stationary, self-contained, and changeless being in the whole universe of universes, having no outside, no beyond, no past, and no future. God is purposive energy (creative spirit) and absolute will, and these are self-existent and universal.

4.4.2 (58.7) Since God is self-existent, he is absolutely independent. The very identity of God is inimical to change. “I, the Lord, change not.” God is immutable; but not until you achieve Paradise status can you even begin to understand how God can pass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from identity to variation, from quiescence to motion, from infinity to finitude, from the divine to the human, and from unity to duality and triunity. And God can thus modify the manifestations of his absoluteness because divine immutability does not imply immobility; God has will — he is will.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_결단하는 존재이며; 스스로_부과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고, 그의 자유 의지 행위는, 자신의 영원한 본성을 천성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특성과 완전한 속성들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종적 선함에 창조적 무한성의 자유의지를 덧붙인 존재로서 우주에 관계하신다.

아버지_절대자는, 완전한 중앙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모든 **창조주**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인격, 선, 그리고 수많은 다른 특질을 사람 및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시지만, 뜻의 무한성은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에서 오직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감상으로만,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지혜의 지시로만 제한된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직접 선택하시고, 따라서 중앙우주는 숭고하게 완전하며;**창조주 아들**들은, 그의 신성, 심지어 그의 절대성의 단면들도 충분히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뜻을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혜로 제한 받는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아들신분인 **미가엘** 계층에서,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욱 활동적이 되며, 절대는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신성하고 거의 궁극적이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시지만, 그의 자발적인 자아_제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의지라는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일곱 층(層) 전체에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본성 전체는 **창조주** 자신의 우주 피조물 가족에 대한 관계에 종속된다. 온갖 우주에서는 정확성이 삼자일체 응보의 특징이겠지만, 시간세계의 피조물과 맺는 그의 방대한 가족 관계 전체에서는, 우주들의 **하나님**이 신성한 감상으로 다스린다. 처음부터 끝까지--곧 영원히-- 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름 중에서, 나는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묘사하도록 지시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 실행은 권능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능만으로 인도되지도 않으며; 신성한 인격은, 영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우주에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제1 근원 및 중심**은, 우주들의 피조물 인격체들과 갖는 모든 개인적 관계에서, 항상 시종일관하게 애정이 깊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 단어의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시다. 그는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로 영원토록 동기를 부여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그 부드러운 본성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고, 거기서 강력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은 과학에서 **최초 원인**이시며; 종교에서는, 우주적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철학에서는, 스스로 실존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실존을 위하여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물체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에게, 실존이

4.4.3 (58.8) God is the being of absolute self-determination; there are no limits to his universe reactions save those which are self-imposed, and his freewill acts are conditioned only by those divine qualities and perfect attributes which inherently characterize his eternal nature. Therefore is God related to the universe as the being of final goodness plus a free will of creative infinity.

4.4.4 (58.9) The Father-Absolute is the creator of the central and perfect universe and the Father of all other Creators. Personality, goodness, and numerous other characteristics, God shares with man and other beings, but infinity of will is his alone. God is limited in his creative acts only by the sentiments of his eternal nature and by the dictates of his infinite wisdom. God personally chooses only that which is infinitely perfect, hence the supernal perfection of the central universe; and while the Creator Sons fully share his divinity, even phases of his absoluteness, they are not altogether limited by that finality of wisdom which directs the Father's infinity of will. Hence, in the Michael order of sonship, creative free will becomes even more active, wholly divine and well-nigh ultimate, if not absolute. The Father is infinite and eternal, but to deny the possibility of his volitional self-limitation amounts to a denial of this very concept of his volitional absoluteness.

4.4.5 (59.1) God's absoluteness pervades all seven levels of universe reality. And the whole of this absolute nature is subjec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or to his universe creature family. Precision may characterize trinitarian justic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in all his vast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creatures of time the God of universes is governed by *divine sentiment*. First and last — eternally — the infinite God is a *Father*. Of all the possible titles by which he might appropriately be known, I have been instructed to portray the God of all creation as the Universal Father.

4.4.6 (59.2) In God the Father freewill performances are not ruled by power, nor are they guided by intellect alone; the divine personality is defined as consisting in spirit and manifesting himself to the universes as love. Therefore, in all his personal relations with the creatur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always and consistently a loving Father. God is a Father in the highest sense of the term. He is eternally motivated by the perfect idealism of divine love, and that tender nature finds its strongest expression and greatest satisfaction in loving and being loved.

4.4.7 (59.3) In science, God is the First Cause; in religion, the universal and loving Father; in philosophy, the one being who exists by himself, not dependent on any other being for existence but beneficently conferring reality of existence on all

라는 실체를 자비롭게 수여하신다. 그러나 종교의 **하나님**, 즉 자비와 선{善}이 가득하고, 땅 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존이 임하도록 보장하는 **하나님**이심을, 과학의 **최초 원인** 및 철학의 자존{自存}하는 **통일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한자** 개념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_관념, 즉 **신격**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인 인격 및 신성{神性} 요소들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찬미한다.

이 세상 인간 생애에서 승리한다는 의식{意識}은, 실존의 되풀이되는 사건마다 이에 감히 도전하는 피조물 신앙에서 생겨나는데, 인간의 제한 조건들로 인한 두려운 장면에 직면할 때, 그 신앙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온갖 우주의 **아버지_절대자**의 일부분인,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선언한다. 바로 이것이 “세계를 압도하는, 너희의 신앙조차 압도하는 승리”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종교의 전통은,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을_알던 사람들의 체험을 불완전하게 보존한 기록이지만, 그런 기록은 종교적 삶을 위한 안내자로서, 또는 **만유의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근원으로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 고대의 믿음들은, 원시인이 신화창작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늘 바뀌어 왔다.

유란시아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가장 큰 혼돈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체들 사이 그리고 **낙원 신격**과 지방우주 창조자 및 경영인들 사이를, 너희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과거 섭리시대들 동안, 너희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행성 왕자, 체계 주권자, 성좌 아버지, 창조주 아들, 연방우주 통치자들, 지존하신 분**,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다. **생명 운반자** 및 다양한 천사 계층 같은, 하위 인격체들의 메시지 가운데 다수가, 너희의 기록에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제시됐다. **유란시아**의 종교적 사고{思考}가, **신격**의 동역 인격체들과 **만유의 아버지** 자신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호칭에 전부 포함돼 있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시 개념의 영향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 폭풍 속에서 계속 돌진하는; 분노에 차서 땅을 흔들고 화내면서 사람을 때려눕히는; 굶주림과 홍수의 때에 불쾌한 심판을 내리는 신{神}들--이들은 원시 종교의 신들이며; 살아 계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들이 아니다. 그런 개념은, 그런 허구적{虛構} 신들의

things and upon all other beings. But it requires revelation to show that the First Cause of science and the self-existent Unity of philosophy are the God of religion, full of mercy and goodness and pledged to effect the eternal survival of his children on earth.

4:4.8 (59.4) We crave the concept of the Infinite, but we worship the experience-idea of God, our anywhere and any-time capacity to grasp the personality and divinity factors of our highest concept of Deity.

4:4.9 (59.5) The consciousness of a victorious human life on earth is born of that creature faith which dares to challenge each recurring episode of existence when confronted with the awful spectacle of human limitations, by the unfailing declaration: Even if I cannot do this, there lives in me one who can and will do it, a part of the Father-Absolut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at is “the victory which overcomes the world, even your faith.”

5. ERRONEOUS IDEAS OF GOD

4:5.1 (59.6) Religious tradition is the imperfectly preserved record of the experiences of the God-knowing men of past ages, but such records are untrustworthy as guides for religious living or as the source of true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al Father. Such ancient beliefs have been invariably altered by the fact that primitive man was a mythmaker.

4:5.2 (60.1)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confusion on Urantia concerning the nature of God grows out of the failure of your sacred books clearl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between Paradise Deity and the local universe creators and administrators. During the past dispensations of partial understanding, your priests and prophets failed clearly to differentiate between Planetary Princes, System Sovereigns, Constellation Fathers, Creator Sons, Superuniverse Rulers, the Supreme Being, and the Universal Father. Many of the messages of subordinate personalities, such as Life Carriers and various orders of angels, have been, in your records, presented as coming from God himself. Urantian religious thought still confuses the associate personalities of Deity with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so that all are included under one appellation.

4:5.3 (60.2) The people of Urantia continue to suffer from the influence of primitive concepts of God. The gods who go on a rampage in the storm; who shake the earth in their wrath and strike down men in their anger; who inflict their judgments of displeasure in times of famine and flood — these are the gods of primitive religion; they are not the

변덕스런 안내와 지배 아래에 우주가 놓여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했던 시기의 유물이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은, **최상급 창조주들과 최상급 통제관들**의 경영 정책과 운영을 고려하는 만큼, 자신이 상대적인 법칙과 질서의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성난 **하나님**을 달래고, 기분상한 **주께** 비위를 맞추며, 희생제물과 고행{苦行}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피 뿌림으로, **신격**의 호의를 사겠다는 야만적 관념은, 전적으로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 즉 과학과 진리로 계몽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철학을 상징한다. 그런 믿음은, 우주에서 근무하고 군림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통치자들에게는 완전히 혐오스럽다.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또는 가상하는 신{神}의 진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고 믿거나 고집부리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히브리인은 “피 뿌리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모세**가,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동물을 예식 희생 제물로 대체하게 했을 때, 순진한 **베도원** 추종자들의 원시 정신에 뿌렸한 진보를 이루게 만들었음에도, 그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들을 달랠 수 없다는 옛날의 이교적{異敎的}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너희 세계에 **낙원 아들**이 증여되는 것은, 한 행성 시대를 마감하는 상황에 내재돼 있었으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었다. 또한 이 증여는,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는 긴 모험에서, 마지막으로 친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발생하게 돼있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엄격하게 냉담하고 준엄해서, 자기 피조물의 불운과 슬픔을 보고도, 아버지다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에, 자신의 결백한 **아들**이 피를 흘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섬세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가르치다니!

그러나 **유란시아** 거주민은,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런 고대의 실책과 이교적 미신들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창조주 아들**이 그토록 숭고하게 묘사했던,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스런 속성들에서, 인간 종족은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도록 예정돼 있다.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Gods who live and rule the universes. Such concepts are a relic of the times when men supposed that the universe was under the guidance and domination of the whims of such imaginary gods. But mortal man is beginning to realize that he lives in a realm of comparative law and order as far as concerns the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onduct of the Supreme Creators and the Supreme Controllers.

4:5.4 (60.3) The barbarous idea of appeasing an angry God, of propitiating an offended Lord, of winning the favor of Deity through sacrifices and penance and even by the shedding of blood, represents a religion wholly puerile and primitive, a philosophy unworthy of an enlightened age of science and truth. Such beliefs are utterly repulsive to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rulers who serve and reign in the universes. It is an affront to God to believe, hold, or teach that innocent blood must be shed in order to win his favor or to divert the fictitious divine wrath.

4:5.5 (60.4) The Hebrews believed that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could be no remission of sin.” They had not found deliverance from the old and pagan idea that the Gods could not be appeased except by the sight of blood, though Moses did make a distinct advance when he forbade human sacrifices and substituted therefor, in the primitive minds of his childlike Bedouin followers, the ceremonial sacrifice of animals.

4:5.6 (60.5) The bestowal of a Paradise Son on your world was inherent in the situation of closing a planetary age; it was inescapable, and it was not mad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favor of God. This bestowal also happened to be the final personal act of a Creator Son in the long adventure of earning the experiential sovereignty of his universe. What a travesty upon the infinite character of God! this teaching that his fatherly heart in all its austere coldness and hardness was so untouched by the misfortunes and sorrows of his creatures that his tender mercies were not forthcoming until he saw his blameless Son bleeding and dying upon the cross of Calvary!

4:5.7 (60.6) But the inhabitants of Urantia are to find deliverance from these ancient errors and pagan superstitions respecting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velation of the truth about God is appearing, and the human race is destined to know the Universal Father in all that beauty of character and loveliness of attributes so magnificently portrayed by the Creator Son who sojourned on Urantia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4:5.8 (61.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 004

유란시아 책

006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섹션

소개

1. 하나님께 접근함
2. 하나님의 현존
3. 참된 경배
4. 종교와 하나님
5. 하나님을 의식함
6. 인격체의 하나님

PAPER 5
GOD'S RELATION TO THE
INDIVIDUA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roach to God
2. The Presence of God
3. True Worship
4. God in Religion
5. The Consciousness of God
6. The God of Personality

소개

만유의 아버지로서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웅대한 **하나님**이, 개별 인간 피조물과 친하게 사귀기 위해, 무한한 완전성 상태인 자신의 영원한 거주지에서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는지,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납득할 수 없다면, 모든 정상 정신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의식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지능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제 단편(斷片)이 거주한다는 참된 사실에 의거해서, 그런 유한한 지능은 신과 교제함을 확신해야 한다. 내주하는 **사고 조울사**는, **낙원아버지**의 영원한 **신격**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교류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이 영적 실체 현존에 대해 숙고하는 내적 체험보다 더 멀리까지 혼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한 여섯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성을 분배해 왔지만, 인격이전(人格以前) 단편들이라는 매개체(媒介體)를 통해서, 창조의 어떤 부분이나 단계나 종류와도 언제든지 직접 친히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온갖 우주의 살아있는 피조물과 신성한 **창조주**들에게 인격을 증여하는 특권을 남겨뒀고, 더욱이 인격 회로를 통해서, 이 인격있는 존재들 전체와 직접,

INTRODUCTION

5:0.1 (62.1) IF THE finite mind of man is unable to comprehend how so great and so majestic a God as the Universal Father can descend from his eternal abode in infinite perfection to fraternize with the individual human creature, then must such a finite intellect rest assurance of divine fellowship upon the truth of the fact that an actual fragment of the living God resides within the intellect of every normal-minded and morally conscious Urantia mortal.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are a part of the eternal Deity of the Paradise Father. Man does not have to go farther than his own inner experience of the soul's contemplation of this spiritual-reality presence to find God and attempt communion with him.

5:0.2 (62.2) God has distributed the infinity of his eternal nature throughout the existential realities of his six absolute co-ordinates, but he may, at any time, make direct personal contact with any part or phase or kind of creation through the agency of his prepersonal fragments. And the eternal God has also reserved to himself the prerogative of bestowing personality upon the divine Creators and the living creatur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le he has further reserved the

아버이로서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남겨줬다.

prerogative of maintaining direct and parental contact with all these personal beings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1. 하나님께 접근함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데, **아버지**가 냉담하신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의 유한성과 물질적 제한조건 때문이다. 우주 실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격체와, 창조된 지성체 중에서 가장 낮은 집단 사이의 영적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등 지성체 계층이 바로 그 **아버지**의 현존 앞으로 즉시 옮겨질 수 있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거기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이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 앞으로 안전하게 안내되기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종일관하게 요청할 수 있기 전에, 그의 앞에는 멀고 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사람은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자신이 볼 수 있을 만큼,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할 어떤 수준을 달성하려면, 그 전에 여러 차례 전환돼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숨어 계시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은둔해 있지 않으신다. 그는 자신의 우주 관찰에 속한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끝_없이 수고하시는 동안, 신성한 지혜 자원을 동원시켜 왔다. 무한한 위엄과 형언할 수 없는 관대함이 그의 장엄한 사랑과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납득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온갖 창조된 존재와 교제하기를 그리워하시게 되며; 따라서, 네가 필사자 상승 여행의 목표를 성취하고, 모든 물체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현존 속에 서게 되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제한조건이며, 이 제한조건은 너의 유한한 인격 및 물질 실존에서 분리될 수 없다.

아버지의 낙원 현존에 접근하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가장 높은 유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네 안에 있는 혼, 그리고 영성화 하는 너의 자아와 매우 긴밀하게 연합된, **아버지**가 증여하신 영과 즉각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_있음을 알아보면서 너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은, 타고난 역량과 지적 재능에서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리거나, 또는 문명의 기술에서 예상되는 발전과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인간적 도움의 부족으로 고생할지도 모르지만; 상승하는 생애 동안 영적 진보를 위한 가능성은 모두에게 동일하며; 영

1. THE APPROACH TO GOD

5:1.1 (62.3) The inability of the finite creature to approach the infinite Father is inherent, not in the Father's aloofness, but in the finiteness and material limitations of created beings. The magnitude of the spiritual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personality of universe existence and the lower groups of created intelligences is inconceivable. Were it possible for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to be transported instantly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himself, they would not know they were there. They would there be just as oblivious of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s where they now are. There is a long, long road ahead of mortal man before he can consistently and within the realms of possibility ask for safe conduct in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Spiritually, man must be translated many times before he can attain a plane that will yield the spiritual vision which will enable him to see even an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5:1.2 (62.4) Our Father is not in hiding; he is not in arbitrary seclusion. He has mobilized the resources of divine wisdom in a never-ending effort to reveal himself to the children of his universal domains. There is an infinite grandeur and an inexpressible generosity connected with the majesty of his love which causes him to yearn for the association of every created being who can comprehend, love, or approach him; and it is, therefor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you, inseparable from your finite personality and material existence, that determine the time and place and circumstances in which you may achieve the goal of the journey of mortal ascension and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Father at the center of all things.

5:1.3 (63.1) Although the approach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Father must await your attainment of the highest finite levels of spirit progression, you should rejoice in the recognition of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immediate communion with the bestowal spirit of the Father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your inner soul and your spiritualizing self.

5:1.4 (63.2) The mortals of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may differ greatly in innate abilities and intellectual endowment, they may enjoy environments exceptionally favorable to social advancement and moral progress, or they may suffer from the lack of almost every human aid to culture and supposed advancement in the arts of

적 통찰력과 시공우주 의미의 증진하는 수준은, 진화 세계에서 다각적인 물질 환경으로 인한 모든 사회_도덕적 차이와는 아주 무관하게 달성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그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기회와 재능에서 다르더라도, 그들의 영적 재능은 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모두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인 신성한 현존을 누리고, 신성한 기원을 갖는 내주하는 이 영광, 긴밀한 인격있는 친교를 추구하는 특권을 똑같이 누리며, 한편 **신비 관찰자**들의 일정한 영적 안내를 받아들이기로, 그들 모두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다.

필사적 사람이 전심을 다해 영적으로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온전히 전념한다면, 그는 내주하는 신성한 **조율사**를 영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효과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처럼 돼가는 점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목적을 갖고 생존한다는 숭고한 확신이, 그 개인의 체험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는 생존하는 **사교 조율사**가 영적으로 내주한다. 그런 인간 정신이 진지하게 영적으로 자극 받는다면, 그런 인간 혼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즉 진심으로 **아버지** 뜻 행하기를 원한다면, **낙원** 입구까지 확실히 상승하는 동안, 그런 신성하게 자극받은 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 파멸의 부정적 영향이나 어떤 훼방 가능한 긍정적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피조물 전체가 자신과 개인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는 그들의 생존하는 신분과 영적 본성이 그런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일 장소를 **낙원**에 마련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철학의 틀을 이렇게 잡으라: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고, 길은 열려 있으며; 신성한 사랑의 힘과 신성한 경영 방법 및 수단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을 향한 모든 우주의 가치 있는 지성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으로, 모두 연결돼 있다.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한자**의 현존과 인격은 확실하다. 너희의 상승은 일곱 연방우주 회로의 일부이며, 너희가 그 주변을 셀 수 없을 만큼 더라도, 너희는 영에서 그리고 신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너희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비교적 외부 회로에서 점점 더 내부 중심 가까이로 변환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너희가 신성한 중앙 현존 안에 서게 될 것임을, 그리고 상징적으

civilization; but the possibilities for spiritual progress in the ascension career are equal to all; increasing levels of spiritual insight and cosmic meanings are attained quite independently of all such sociomoral differentials of the diversified material environments on the evolutionary worlds.

5:1.5 (63.3) However Urantia mortals may differ in their intellectual, social, economic, and even moral opportunities and endowments, forget not that their spiritual endowment is uniform and unique. They all enjoy the same divine presence of the gift from the Father, and they are all equally privileged to seek intimate personal communion with this indwelling spirit of divine origin, while they may all equally choose to accept the uniform spiritual leading of these Mystery Monitors.

5:1.6 (63.4) If mortal man is wholeheartedly spiritually motivated, unreservedly consecrated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then, since he is so certainly and so effectively spiritually endowed by the indwelling and divine Adjuster, there cannot fail to materialize in that individual's experience the sublime consciousness of knowing God and the supernal assurance of surviving for the purpose of finding God by the progressive experie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like him.

5:1.7 (63.5) Man is spiritually indwelt by a surviving Thought Adjuster. If such a human mind is sincerely and spiritually motivated, if such a human soul desires to know God and become like him, honestly wants to do the Father's will, there exists no negative influence of mortal deprivation nor positive power of possible interference which can prevent such a divinely motivated soul from securely ascending to the portals of Paradise.

5:1.8 (63.6) The Father desires all his creatures to be in personal communion with him. He has on Paradise a place to receive all those whose survival status and spiritual nature make possible such attainment. Therefore settle in your philosophy now and forever: To each of you and to all of us, God is approachable, the Father is attainable, the way is open; the forces of divine love and the ways and means of divine administration are all interlocked in an effort to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every worthy intelligence of every universe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5:1.9 (63.7) The fact that vast time is involved in the attainment of God makes the presence and personality of the Infinite none the less real. Your ascension is a part of the circui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ough you swing around it countless times, you may expect, in spirit and in status, to be ever swinging inward. You can depend upon being translated from sphere to sphere, from the outer circuits ever nearer the inner center, and some day, doubt not, you shall stand in the divine and central presence and see

로 말해서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실제로, 글자 그대로 영적 수준의 달성에 대한 문제이며; **신비 관찰자**가 내주했던, 그리고 나중에 그 **사고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한 어떤 존재든지, 이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적 은신처에 계시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조물은 그들 자신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안개 속에 스스로 숨어 왔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정신과 비영적(非靈的) 본성에 속하는 자주적(自主的) 주장에 빠짐으로써,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의 교류에서 스스로를 한동안 차단시켜 왔다.

필사적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선택 능력이 남아 있는 한, 신성한 뜻을 반복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이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능력을 잃기 전에는, 사람의 최종 파멸은 결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필요와 청원에 대해 결코 닫혀있지 않다. **아버지**의 이끄는 능력에 대해 그의 자손이 마음을 영원히 닫을 때에만, 그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곧 그를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욕망을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자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취소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했음을 **조율사** 융합이 우주에 선포할 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확증된다.

위대한 **하나님**은, 필사적 사람과 직접 접촉하시며, 사람 안에 살고 거주하도록 자신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가해한 자아 가운데 일부를 내주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모험을 시작하셨다. 너의 안에서, 그리고 너의 주변에서, 영적 세력들이 안내하는 것을 네가 따른다면, 너는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피조물의 우주 목표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수립하신 높은 운명을 달성하기에 실패할 수 없다.

2. 하나님의 현존

무한자의 물리적 현존은 물질 우주의 실체다. **신격**이 정신에 현존하심은, 개별적인 지적 체험의 깊이와 진화하는 인격체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신성**(神性)의 영적 현존은, 우주에서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 그것은 감수성(感受性)이라는 영적 수용력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피조물 의지의 헌신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아들마다 그 속에 살아 계신다. **낙원 아들**들은, **하나님**의 현존, 즉 **“아버지**의 오른 편”을 향해 항상 접근할 수 있으며, 피조 인격체는 누구나, **“아버지**의 품”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되든지, 인격 회로를 언급하는 것이며, 또

him, figuratively speaking, face to face. It is a question of the attainment of actual and literal spiritual levels; and these spiritual levels are attainable by any being who has been indwelt by a Mystery Monitor, and who has subsequently eternally fused with that Thought Adjuster.

5:1.10 (64.1) The Father is not in spiritual hiding, but so many of his creatures have hidden themselves away in the mists of their own willful decisions and for the time being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communion of his spirit and the spirit of his Son by the choosing of their own perverse ways and by the indulgence of the self-assertiveness of their intolerant minds and unspiritual natures.

5:1.11 (64.2) Mortal man may draw near God and may repeatedly forsake the divine will so long as the power of choice remains. Man's final doom is not sealed until he has lost the power to choose the Father's will. There is never a closure of the Father's heart to the need and the petition of his children. Only do his offspring close their hearts forever to the Father's drawing power when they finally and forever lose the desire to do his divine will — to know him and to be like him. Likewise is man's eternal destiny assured when Adjuster fusion proclaims to the universe that such an ascender has made the final and irrevocable choice to live the Father's will.

5:1.12 (64.3) The great God makes direct contact with mortal man and gives a part of his infinite and eternal and incomprehensible self to live and dwell within him. God has embarked upon the eternal adventure with man. If you yield to the leadings of the spiritual forces in you and around you, you cannot fail to attain the high destiny established by a loving God as the universe goal of his ascendant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2. THE PRESENCE OF GOD

5:2.1 (64.4)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Infinite is the reality of the material universe. The mind presence of Deity must be determined by the depth of individual intellectual experience and by the evolutionary personality level. The spiritual presence of Divinity must of necessity be differential in the universe. It is determined by the spiritual capacity of receptivity and by the degree of the consecration of the creature's will to the doing of the divine will.

5:2.2 (64.5) God lives in every one of his spirit-born sons. The Paradise Sons always have access to the presence of God,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all of his creature personalities have access to the “bosom of the Father.” This refers to the personality circuit, whenever, wherever, and

는 그렇지 않으면 중앙 거주지에서든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든지, **낙원**의 신성시되는 일곱 구면 {球面} 가운데 하나에서처럼, **만유의 아버지**와 인격있는 접촉 및 교제, 자아_의식하는 접촉 및 교제를 수반한다.

아무튼, 자연계 속 어디서든지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_아는 필사자의 삶에서가 아니라,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 즉 **낙원 사고 조율사**와 교류하려고 너희가 시도할 때, 신{神}의 현존은 아주 충분하고 아주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자신의 정신 속에 살아 계시는 데도, **하나님**이 하늘 저 멀리 계시다고 몽상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가!

이 **하나님** 단편이 너희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율사**의 영적 인도에 조화되면서 진보하는 동안,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접촉하지만 너희의 완전한 일부분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 다른 영적 영향들의 현존과 변형하는 능력을 더 충분히 식별하기를 너희가 소망할 수 있다. 내주하는 **조율사**와 갖는 가깝고 긴밀한 접촉에 대해 너희가 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고양된 체험을 결코 반박할 수 없다. 신성한 **조율사**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신자의 생애 체험에서 산출되는 영 열매의 본성과 크기만이 증거할 수 있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필사적 사람의 불충분하게 영성화 된 물질 정신은, **낙원 조율사** 같은 그런 신성한 실재의 영 {靈} 활동을 뚜렷이 의식하는 체험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신 및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인 혼이 점점 더 실존하게 될 때 혼 의식의 새로운 국면 역시 진화하는데, 그 혼 의식은 **신비 관찰자**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고, **신비 관찰자**의 영 {靈} 인도 및 기타 초물질 활동을 알아볼 수 있다.

조율사와 교류하는 체험 전부가, 도덕적 상태, 정신적 자극, 및 영적 체험을 수반하는 체험이다. 그런 성취의 자아_실현은 주로, 독점적이지는 않더라도, 혼 의식의 영역들로 제한되지만, 그 증거는 내부의_영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생애에서 영 열매가 맺힘으로써 곧 풍성하게 나타난다.

3. 참된 경배

우주의 관점에서는 **낙원 신격**들이 하나더라도,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부류의 존재들과 맺는 영적 관계에서는 역시 분리된 별개의 세 인격자이다. 개인적인 간청, 교류, 그리고 다른 긴밀한 관계에 관해서는, **하나님본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오직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한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가

however contacted, or otherwise entails personal, self-conscious contact and communion with the Universal Father, whether at the central abode or at some other designated place, as on one of the seven sacred spheres of Paradise.

5:2.3 (64.6) The divine presence cannot, however, be discovered anywhere in nature or even in the lives of God-knowing mortals so fully and so certainly as in your attempted communion with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 What a mistake to dream of God far off in the skies whe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lives within your own mind!

5:2.4 (64.7) It is because of this God fragment that indwells you that you can hope, as you progress in harmonizing with the Adjuster's spiritual leadings, more fully to discern the presence and transforming power of those other spiritual influences that surround you and impinge upon you but do not function as an integral part of you. The fact that you are not intellectually conscious of close and intimate contact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does not in the least disprove such an exalted experience. The proof of fraternity with the divine Adjuster consists wholly i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fruits of the spirit which are yielded in the lif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5:2.5 (65.1)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eagerly spiritualized, material mind of mortal man to experience marked consciousness of the spirit activities of such divine entities as the Paradise Adjusters. As the soul of joint mind and Adjuster creation becomes increasingly existent, there also evolves a new phase of soul consciousness which is capable of experiencing the presence, and of recognizing the spirit leadings and other supermaterial activities, of the Mystery Monitors.

5:2.6 (65.2) The entire experience of Adjuster communion is one involving moral status, mental motivation, and spiritual experience. The self-realization of such an achievement is mainly, though not exclusively, limited to the realms of soul consciousness, but the proofs are forthcoming and abundant in the manifestation of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lives of all such inner-spirit contactors.

3. TRUE WORSHIP

5:3.1 (65.3) Though the Paradise Deities, from the universe standpoint, are as one, in their spiritual relations with such beings as inhabit Urantia they are also three distinct and separate pers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odheads in the matter of personal appeals, communion, and other intimate relations. In the highest sense, we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and him only. True,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드러나는 만큼 그를 경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배 받고 찬미 받으실 분은 **아버지**시다.

모든 종류의 간구는, **영원한 아들** 및 **그 아들**의 영적 조직 영역에 속한다. 기도, 모든 의례적 대화는,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경배를 제외하고, 지방우주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대개 **창조주 아들**의 관할권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경배는, **아버지**의 인격 회로의 작용으로 인해 확실하게 회로화(回路化) 되고, **창조주**의 인격자에게 즉시 발송된다. 게다가 우리는, **조율사가** 내주하는 피조물의 경의(敬意)가 그렇게 등록되는 것을, **아버지**의 영 현존이 촉진시킨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입증할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모든 계층의 **아버지** 단편들은, 그 백성의 진실한 찬미를 **만유의 아버지** 현존 앞에서 만족스럽게 등록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조율사**들은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이전의 직통 경로를 분명하게 활용하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기도는 자기_이익 또는 피조물_이익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경배와 기도 사이의 큰 차이다. 참된 경배에는 개인의 이익에 속하는 자기_요청 또는 다른 요소가 전혀 없으며; 우리는 그가 어떤 것이라고 납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릴 뿐이다. 경배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경배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공경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를 경배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인격을 인식함에 따라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그리고 그의 매력적인 본성과 찬미할만한 속성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경배에 참여한다.

자기_이익의 요소가 경배를 강요하는 순간, 그런 헌신은 경배에서 기도로 바뀌고,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주 아들** 인격자에게 더 적절히 인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종교 체험에서는, 참된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일상생활의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너는 **제3 근원 및 중심**에서 기원된 영 인격체들에게 맡겨지며; **공동 행위자**의 대리인들과 협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교류하며; 네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지성체들과 관계하면서, 네가 이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생기는 세부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

지방우주의 운명을 관장하는 **창조주** 또는 **주권자 아들**이, **낙원의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

we can and do worship the Father as he is manifested in his Creator Sons, but it is the Fa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o is worshiped and adored.

5.3.2 (65.4) Supplications of all kinds belong to the realm of the Eternal Son and the Son's spiritual organization. Prayers, all formal communications, everything except adoration and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are matters that concern a local universe; they do not ordinarily proceed out of the realm of the jurisdiction of a Creator Son. But worship is undoubtedly encircuited and dispatched to the person of the Creator by the function of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We further believe that such registry of the homage of an Adjuster-indwelt creature is facilitated by the Father's spirit presence. There exists a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to substantiate such a belief, and I know that all orders of Father fragments are empowered to register the bona fide adoration of their subjects acceptably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Adjusters undoubtedly also utilize direct prepersonal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God, and they are likewise able to utilize the spirit-gravity circuits of the Eternal Son.

5.3.3 (65.5) Worship is for its own sake; prayer embodies a self- or creature-interest element; that i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worship and prayer. There is absolutely no self-request or other element of personal interest in true worship; we simply worship God for what we comprehend him to be. Worship asks nothing and expects nothing for the worshiper. We do not worship the Father because of anything we may derive from such veneration; we render such devotion and engage in such worship as a natural and spontaneous reaction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s matchless personality and because of his lovable nature and adorable attributes.

5.3.4 (65.6) The moment the element of self-interest intrudes upon worship, that instant devotion translates from worship to prayer and more appropriately should be directed to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or the Creator Son. But in practical religious experience there exists no reason why prayer should not be addressed to God the Father as a part of true worship.

5.3.5 (66.1) When you deal with the practical affairs of your daily life, you are in the hands of the spirit personalities having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you are co-operating with the agencies of the Conjoint Actor. And so it is: You worship God; pray to, and commune with, the Son; and work out the details of your earthly sojourn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igences of the Infinite Spirit operating on your world and throughout your universe.

5.3.6 (66.2) The Creator or Sovereign Sons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local universes stand in the place of both the Universal Father and

들, 두 분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경배 드리는 찬미를 받고, 그들 각자의 창조계 전반에 걸쳐서 탄원하는 백성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 지방우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실제 의도와 목적에서 볼 때, **미가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지방우주에서 인격화{人格化}된 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을 통해서 이 영역의 자녀들과 직접 접촉을 유지하는데, 이들은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경영 및 창조 동역자다.

진지한 경배는, 진화하는 혼{魂}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관련된 **사교 조율사**의 신성한 방향 설정에 따라서, 인간 인격의 모든 능력이 동원됨을 의미한다. 물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정신은, 참된 경배의 실제 의미를 결코 깊이 의식할 수 없다. 경배 드리는 체험의 실체를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진화하면서 불멸하는 그의 혼의 발전적인 상태에 주로 좌우된다. 그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자아_의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

경배 드리는 체험은, 인간 혼--곧 **하나님**을_추구하는 필사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_드러내는 불멸{不滅}하는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망과 형언할 수 없는 염원을, 약혼중인 **조율사**가 신성한 **아버지**께 전달하려는 숭고한 시도다. 그러므로 경배는, 관련된 영의 안내를 따라서, **만유의 아버지**의 신앙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물질 정신의 영화{靈化}하려는 자아의 시도에 동의하는 행위다. 필사 정신은 경배에 동의하며; 불멸하는 혼은 경배를 갈망하고 일으키며; 신성한 **조율사** 현존은 필사 정신 및 진화하면서 불멸하는 혼을 대신하여 그런 경배를 수행한다. 결국, 참된 경배는 네 가지 시공우주 수준, 즉: 지적, 모른시아적, 영적, 및 인격적 수준에서 실현되는--곧 정신, 혼, 및 영이 의식{意識}하고, 인격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통합되는-- 체험이 된다.

4. 종교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 진화 종교의 도덕성이, 두려움이라는 원동력으로 사람들을 앞으로 몰아간다. 계시 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들이 그분처럼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그저 “절대 의존”과 “생존 보장”이라는 소극적 느낌이 아니며; 인류를 섬기는 데 기초를 두고 신성{神性}에 도달하려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체험이다.

참된 종교의 위대하고 즉각적인 공헌은, 인간의 체험 속에서 지속되는 통일, 즉 영속하는 평화

the Eternal Son of Paradise. These Universe Sons receiv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adoration of worship and give ear to the pleas of their petitioning subjects throughout their respective creations. To the children of a local universe a Michael Son i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God. He is the local universe personific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maintains personal contact with the children of these realms through the Universe Spirits, the administrative and creative associates of the Paradise Creator Sons.

5:3.7 (66.3) Sincere worship connotes the mobilization of all the powers of the human personality under the dominance of the evolving soul and subject to the divine directionization of the associated Thought Adjuster. The mind of material limitations can never become highly conscious of the real significance of true worship. Man's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worship experience is chiefly determined by the developmental status of his evolving immortal soul. The spiritual growth of the soul takes place wholly independently of the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5:3.8 (66.4) The worship experience consists in the sublime attempt of the betrothed Adjuster to communicate to the divine Father the inexpressible longings and the unutterable aspirations of the human soul — the conjoint creation of the God-seeking mortal mind and the God-revealing immortal Adjuster. Worship is, therefore, the act of the material mind's assenting to the attempt of its spiritualizing self,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ociated spirit, to communicate with God as a faith s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mortal mind consents to worship; the immortal soul craves and initiates worship; the divine Adjuster presence conducts such worship in behalf of the mortal mind and the evolving immortal soul. True worship, in the last analysis, becomes an experience realized on four cosmic levels: the intellectual, the morontial, the spiritual, and the personal — the consciousness of mind, soul, and spirit, and their unification in personality.

4. GOD IN RELIGION

5:4.1 (66.5) The morality of the religions of evolution drives men forward in the God quest by the motive power of fear. The religions of revelation allure men to seek for a God of love because they crave to become like him. But religion is not merely a passiv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and “surety of survival”; it is a living and dynamic experience of divinity attainment predicated on humanity service.

5:4.2 (66.6) The great and immediate service of true religion is the establishment of an enduring unity in human experience, a lasting peace and a profound

와 깊은 확신이 수립되는 것이다. 원시적 사람에게는, 심지어 다신교{多神敎}조차, **신격**에 대한 진화적 개념이 비교적 통합된 것이며; 다신교는 발달 중에 있는 일신교{一神敎}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가치의 실체, 의미의 내용, 및 진리의 생명이 라고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돼있다.

하나님은 운명의 결정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모든 비종교적 인간 활동은, 우주를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이바지하는 쪽으로 악용하려고 하며; 참되게 종교적인 개인은, 자아를 우주와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통일된 이자아 활동을, 인간이든지 초인(超人)이든지, 우주 가족의 동료 존재들에게 이바지하는 데 바치고자 한다.

철학과 예술의 분야가, 인간 자아의 비종교 활동과 종교 활동 사이에 끼어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물질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 영적 실체 및 우주 가치를 숙고하도록 유인된다.

모든 종교는, **신격**에 대한 경배와, 인간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음, 즉 끝없는 평화를 약속하며; **유대교**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음, 즉 정의에 입각한 변역을 약속하며; **그리스** 종교는, 아름다움을 실현함으로써, 불일치, 즉 추함으로부터 구원받음을 약속하며; **그리스도교**는, 죄로부터 구원받음, 즉 거룩함을 약속하며; **마호멧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혹한 도덕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예수**의 종교는,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 즉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피조물이 고립되는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히브리인은 자신의 종교를 선함에 기초했고; **그리스인**은 아름다움에 기초했으며; 두 종교는 모두 진리를 추구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사랑은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모두 포함한다.

조로아스터교도는 품행의 종교를; **힌두인**은 형이상학의 종교를; **유교도**는 윤리의 종교를 소유했다. **예수**는 봉사하는 종교를 실천했다. 이 모든 종교는 **예수**의 종교에 접근하기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종교는, 인간 체험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합하는 실체가 되게 돼있다.

그리스인의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를 가졌으며; **히브리인**은, “너희의 **하나님**을 알라”는 가르침에 중점을 뒀으며; **그리스도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삼는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했다. 종교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들이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개인의 입장을 결정하며, 그의 개인기도 습관의 본질과 경배의 깊이를 예시한다. 어떤 종교든지, 영적 상태는 그 기도의

assurance. With primitive man, even polytheism is a relativ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concept of Deity; polytheism is monotheism in the making. Sooner or later, God is destined to be comprehended as the reality of values, the substance of meanings, and the life of truth.

5.4.3 (67.1) God is not only the determiner of destiny; he is man's eternal destination. All nonreligious human activities seek to bend the universe to the distorting service of self; the truly religious individual seeks to identify the self with the universe and then to dedicate the activities of this unified self to the service of the universe family of fellow beings, human and superhuman.

5.4.4 (67.2) The domains of philosophy and art intervene between the nonreligious and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he human self. Through art and philosophy the material-minded man is inveigled into the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realities and universe values of eternal meanings.

5.4.5 (67.3) All religions teach the worship of Deity and some doctrine of human salvation. The Buddhist religion promises salvation from suffering, unending peace; the Jewish religion promises salvation from difficulties, prosperity predicated on righteousness; the Greek religion promised salvation from disharmony, ugliness, by the realization of beauty; Christianity promises salvation from sin, sanctity; Mohammedanism provides deliverance from the rigorous moral standards of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religion of Jesus is salvation from self, deliverance from the evils of creature isolation in time and in eternity.

5.4.6 (67.4) The Hebrews based their religion on goodness; the Greeks on beauty; both religions sought truth. Jesus revealed a God of love, and love is all-embracing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5.4.7 (67.5) The Zoroastrians had a religion of morals; the Hindus a religion of metaphysics; the Confucianists a religion of ethics. Jesus lived a religion of service. All these religions are of value in that they are valid approaches to the religion of Jesus. Religion is destined to become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unification of all that is good, beautiful, and true in human experience.

5.4.8 (67.6) The Greek religion had a watchword “Know yourself”; the Hebrews centered their teaching on “Know your God”; the Christians preach a gospel aimed at a “knowledge of the Lord Jesus Christ”; Jesus proclaimed the good news of “knowing God, and yourself as a son of God.” These differing concepts of the purpose of religion determine the individual's attitude in various life situations and foreshadow the depth of worship and the nature of his personal habits of prayer. The spiritual status of any religion may be

본질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약간인간적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다신교와 숭고한 일신교 사이의 필연적 과도기다. 고양된 의인화{擬人化} 사상은, 순전한 진화 종교의 최고 달성 수준이다. **그리스도교**는 의인화 사상의 개념을, 인간의 이상{理想}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인격자라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개념으로 향상시켜 왔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개념은 분리된 세 교훈을 혼합하려는 시도다:

1. **히브리 개념** --도덕적 가치의 옹호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2. **그리스 개념** --통합자이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3. **예수의 개념** --살아있는 친구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신성한 현존.

그러므로, 혼합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어려움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가, 다른 세 사람, 즉: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다소의 바울**의 개인 종교 체험에 일반적으로 기초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

예수의 종교적 생애를 연구할 때,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의 죄 없음에 대해서보다는 그의 의로움, 즉 그의 사랑스런 봉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라.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 **히브리** 개념에서 제시된 수동적 사랑을, 심지어 잘못을 범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더 고상한 능동적이고 피조물을 _사랑하시는 애정으로 향상시켰다.

5. 하나님을 의식함

도덕체계는 자아를 _의식하는 이성{理性}에서 기원했으며; 동물을 초월하지만 전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인간의 진화는, 그 진화가 전개되는 동안, **조물사**가 증여되고 **진리의 영**이 부여되기 이전에 얻은 모든 재능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체계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필사자 삶의 실제 투쟁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물리적 환경은 실존을 위한 투쟁을 수반하며; 사회적 환경은 윤리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도덕적 상황은 이성의 최고 영역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하나님**을 이해해 온) 영적 체험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종교는, 과학의 사실, 사회의 책무, 철학의 가정{假定}, 또는 도덕체계의 암시적 의무에 기초하

determined by the nature of its prayers.

5:4.9 (67.7) The concept of a semihuman and jealous God is an inevitable transition between polytheism and sublime monotheism. An exalted anthropomorphism is the highest attainment level of purely evolutionary religion. Christianity has elevated the concept of anthropomorphism from the ideal of the human to the transcendent and divine concept of the person of the glorified Christ. And this is the highest anthropomorphism that man can ever conceive.

5:4.10 (67.8) The Christian concept of God is an attempt to combine three separate teachings:

5:4.11 (67.9) 1. *The Hebrew concept* — God as a vindicator of moral values, a righteous God.

5:4.12 (67.10) 2. *The Greek concept* — God as a unifier, a God of wisdom.

5:4.13 (68.1) 3. *Jesus' concept* — God as a living friend, a loving Father, the divine presence.

5:4.14 (68.2) It must therefore be evident that composite Christian theology encounters great difficulty in attaining consistency. This difficulty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doctrines of early Christianity were generally based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ree different persons: Philo of Alexandria, Jesus of Nazareth, and Paul of Tarsus.

5:4.15 (68.3) In the study of the religious life of Jesus, view him positively. Think not so much of his sinlessness as of his righteousness, his loving service. Jesus upstepped the passive love disclosed in the Hebrew concept of the heavenly Father to the higher active and creature-loving affection of a God who is the Father of every individual, even of the wrongdoer.

5. THE CONSCIOUSNESS OF GOD

5:5.1 (68.4) Morality has its origin in the reason of self-consciousness; it is superanimal but wholly evolutionary. Human evolution embraces in its unfolding all endowments antecedent to the bestowal of the Adjusters and to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But the attainment of levels of morality does not deliver man from the real struggles of mortal living. Man's physical environment entails the battle for existence; the social surroundings necessitate ethical adjustments; the moral situations require the making of choices in the highest realms of reason; the spiritual experience (having realized God) demands that man find him and sincerely strive to be like him.

5:5.2 (68.5) Religion is not grounded in the facts of science, the obligations of society, the

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독립된 영역이며, 도덕이 생긴 뒤에 인간이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를 실현하고 우주와 친교를 누리는, 다음과 같은 네 수준 전체에 스며들 수 있다: 자아를 보존하는 물리적 수준, 즉 물질 수준; 친교하는 사회{社會} 수준, 즉 감정 수준; 이성이 작용하는 도덕 수준, 즉 의무 수준; 신계 경배드림으로써 우주 친교를 인식하는 영적 수준.

사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을, **최초 원인**, 즉 힘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이상{理想}, 즉 미적{美的}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추론하는 철학자는 때때로, 우주를 통일하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범신론적 **신격**까지도 가정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 신앙을 가진 종교인은, 생존을 촉진시키는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도덕 행위는, 진화된 종교보다 항상 선행되고 심지어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종교 체험 전체보다 선행될 수는 결코 없다. 사회 봉사는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삶의 결과다. 도덕성은, 생물학적 견지에서 더 높은 영적 수준의 종교 체험으로 이끌지 않는다. 추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숭배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 종교는, **조물사**가 증여되고 **진리의 영**이 도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시된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을 고양시키는, 과학, 예술, 및 철학의 모체{母體}다. 종교의 특성이, 하나는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다른 하나는 계시적이고 주기적인 것처럼 매우 다름에도, 인간 실존의 진화 양상은 종교와 함께 시작하고 종교와 함께 끝난다. 그리하여, 종교는 사람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선택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종교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종교 체험은, 근본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 정신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학의 기능, 즉 종교 심리학이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기본 교리가, 유한한 납득 속에 역설{逆說}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논리로 따지고 유한자가 추리해도, 신이 안에 계신다는 개념, 즉 **하나님**이 각 개인 안에 있고 또한 그 일부분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초월, 즉 온갖 우주를 신성하게 통치하신다는 관념을, 결코 조화시킬 수 없다. 지성적 경배를 정당화시키고 인격 생존의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격있는 **하나님**이라는 초월 개념을 신앙으로 파악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단편이 내주하는 현존임을 깨닫는 가운데, **신격**에 대한 이 두 근본 개념이 통합돼야 한다. 종교의 난제와 역설은, 종교 실체들을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사자에게 전혀 없다는 사

assumptions of philosophy, or the implied duties of morality. Religion is an independent realm of human response to life situations and is unfailingly exhibited at all stages of human development which are postmoral. Religion may permeate all four levels of the realization of values and the enjoyment of universe fellowship: the physical or material level of self-preservation; the social or emotional level of fellowship; the moral or duty level of reason; the spiritual level of the consciousness of universe fellowship through divine worship.

5.5.3 (68.6) The fact-seeking scientist conceives of God as the First Cause, a God of force. The emotional artist sees God as the ideal of beauty, a God of aesthetics. The reasoning philosopher is sometimes inclined to posit a God of universal unity, even a pantheistic Deity. The religionist of faith believes in a God who fosters survival, the Father in heaven, the God of love.

5.5.4 (68.7) Moral conduct is always an antecedent of evolved religion and a part of even revealed religion, but never the whole of religious experience. Social service is the result of moral thinking and religious living. Morality does not biologically lead to the higher spiritual levels of religious experience. The adoration of the abstract beautiful is not the worship of God; neither is exaltation of nature nor the reverence of unity the worship of God.

5.5.5 (68.8) Evolutionary religion is the mother of the science, art, and philosophy which elevated man to the level of receptivity to revealed religion, including the bestowal of Adjusters and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The evolutionary picture of human existence begins and ends with religion, albeit very different qualities of religion, one evolutionary and biological, the other revelational and periodical. And so, while religion is normal and natural to man, it is also optional. Man does not have to be religious against his will.

5.5.6 (69.1) Religious experience, being essentially spiritual, can never be fully understood by the material mind; hence the function of theology,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essential doctrine of the human realization of God creates a paradox in finite comprehension. It is well-nigh impossible for human logic and finite reason to harmonize the concept of divine immanence, God within and a part of every individual, with the idea of God's transcendence, the divine domin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se two essential concepts of Deity must be unified in the faith-grasp of the concept of the transcendence of a personal God and in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presence of a fragment of that God in order to justify intelligent worship and validate the hope of personality survival. The difficulties and

실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필사적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종교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감을 획득한다:

1. **지적으로**, 사람은 인간 의식이 더욱 통합됨으로 인한 만족감을 획득한다.

2.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실체화됨을 누린다.

3. **영적으로**, 사람은 신과 교제하는 체험을 맛보는 가운데, 참된 경배로 영적 만족감을 얻으면서 성장한다.

하나님을 의식함은, 그 영역의 진화하는 필사자가 체험하듯이, 가지각색의 세 요소, 즉 서로 다른 세 실체 실현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정신 의식--곧 **하나님**이라는 관념에 대한 납득--이 있다. 다음에는 혼 의식--곧 **하나님**이라는 **이**상에 대한 깨달음--이 따라온다. 끝으로는, 영 의식--곧 **하나님**이라는 **영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불충분하더라도, 신을 깨닫는 이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필사자 인격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심을 어떤 의식 수준에서든지 반드시 깨닫는다. **완결성취 단계**를 달성한 필사자들 안에서, 이 모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존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성, 즉 **낙원 아버지**를 유한절대적으로 초월의식하는 어떤 국면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체험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똑같이 전수되지만, 인간의 지식이 진보하는 각 시기마다,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 즉 종교적 의식(意識)은 우주의 실체이지만, 얼마나 타당한 (실체적인) 체험이든지, 지성의 비평과 이성의 철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인간 체험의 전체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되도록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격의 영원한 생존은 필사 정신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불멸하는 혼이 생존할 가능성을 그 결정이 좌우한다. 정신이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양육하는 **조율사**와 함께 정신과 혼이 모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생존이 보증된다. 지능의 제한조건, 교육의 단축, 문화의 상실, 사회적 상태의 메마름, 그리고 심지어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이점의 불행한 결핍에서 발생하는 인간 규범의 열등함조차, 그렇게 불운하고 인간적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믿는 개인 속에 신성한 영이 현존함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 관찰자**의 내주가, 불멸하는 혼의 성장 및 생존의 잠재력의 시초를 이루고, 그 가능성을 보장한다.

paradoxes of religion are inherent in the fact that the realities of religion are utterly beyond the mortal capacity for intellectual comprehension.

5:5.7 (69.2) Mortal man secures three great satisfactions from religious experience, even in the days of his temporal sojourn on earth:

5:5.8 (69.3) 1. *Intellectually* he acquires the satisfactions of a more unified human consciousness.

5:5.9 (69.4) 2. *Philosophically* he enjoys the substantiation of his ideals of moral values.

5:5.10 (69.5) 3. *Spiritually* he thrives in the experience of divine companionship, in the spiritual satisfactions of true worship.

5:5.11 (69.6) God-consciousness, as it is experienced by an evolving mortal of the realms, must consist of three varying factors, three differential levels of reality realization. There is first the mind consciousness — the comprehension of the *idea* of God. Then follows the soul consciousness —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God. Last, dawns the spirit consciousness —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reality* of God. By the unification of these factors of the divine realization, no matter how incomplete, the mortal personality at all times overspreads all conscious levels with a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those mortals who have attained the Corps of the Finality all this will in time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supremacy* of God and may subsequently eventuate in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cy* of God, some phase of the absonite superconsciousness of the Paradise Father.

5:5.12 (69.7) The experience of God-consciousness remains the sa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with each advancing epoch in human knowledge the philosophic concept and the theologic definitions of God *must* change. God-knowingness, religious consciousness, is a universe reality, but no matter how valid (real) religious experience is, it must be willing to subject itself to intelligent criticism and reasonable philosophic interpretation; it must not seek to be a thing apart in the totality of human experience.

5:5.13 (69.8) Eternal survival of personality is wholly dependent on the choosing of the mortal mind, whose decisions determine the survival potential of the immortal soul. When the mind believes God and the soul knows God, and when, with the fostering Adjuster, they all *desire* God, then is survival assured. Limitations of intellect, curtailment of education, deprivation of culture, impoverishment of social status, even inferiority of the human standards of morality resulting from the unfortunate lack of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advantages, cannot invalidate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in such unfortunate and humanly handicapped but believing individuals. The

출산할 수 있는 필사자 부모의 역량은,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자격에 입각하지 않는다. 자연 조건 아래서 부모의 인자(因子)들의 결합은, 자손을 생기게 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영(靈)이 부여된 그런 개인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정직하게 선택한다면, 그 필사자 안에서 생존하는 자질을 가진 불멸하는 혼을 비로소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조울사**와 합동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간 정신뿐이다.

6. 인격체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낮은 필사 물질 인격체 신분의 피조물을 비롯해서, 가장 높은 창조자 존엄성 및 신성한 신분에 해당하는 인격자들까지, 우주 인격체의 영역은 그 중심과 경계선을 **만유의 아버지** 안에 둔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격을 증여하는 분이신 동시에 보존하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낙원 아버지**는 신성한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선택한 유한 인격체들 전부의 운명이기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

인격은 우주들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인격을 다양한 계층과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적당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격 자체의 실제 본성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합쳐진 상태로 인간 인격을 수여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를 분명히 감지하지만, 그런 유한한 인격의 본성과 의미심장함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인격은, 최소한의 자아_의식에서 최대한의 **하나님**_의식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갖는 정신 재능을 지닌, 모든 피조물 안에 잠재돼 있다. 그러나 정신 재능 자체만으로는 인격이 아니며,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인격은, 물질과 정신과 영의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이 에너지 체계에 **아버지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증여하시는, 시공우주 실체의 그 특성 및 가치다. 인격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체는 물질적이거나 영적일 수 있지만, 인격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가운데 하나다. 인격적이지 않은 자들은, **낙원 아버지**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격있는 존재의 수준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인격의 증여는 **만유의 아버지**의 독점 기능, 즉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인격화인데, 상대적인

indwelling of the Mystery Monitor constitutes the inception and insures the possibility of the potential of growth and survival of the immortal soul.

5:5.14 (70.1) The ability of mortal parents to procreate is not predicated on their educational, cultural, social, or economic status. The union of the parental factors under natural conditions is quite sufficient to initiate offspring. A human mind discerning right and wrong and possessing the capacity to worship God, in union with a divine Adjuster, is all that is required in that mortal to initiate and foster the production of his immortal soul of survival qualities if such a spirit-endowed individual seeks God and sincerely desires to become like him, honestly elect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6. THE GOD OF PERSONALITY

5:6.1 (70.2) The Universal Father is the God of personalities. The domain of universe personality, from the lowest mortal and material creature of personality status to the highest persons of creator dignity and divine status, has its center and circumference in the Universal Father. God the Father is the bestower and the conservator of every personality. And the Paradise Father is likewise the destiny of all those finite personalities who wholeheartedly choose to do the divine will, those who love God and long to be like him.

5:6.2 (70.3) Personality is one of the unsolved mysteries of the universes. We are able to form adequate concepts of the factors entering into the make-up of various orders and levels of personality,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real nature of the personality itself. We clearly perceive the numerous factors which, when put together, constitute the vehicle for human personality,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such a finite personality.

5:6.3 (70.4) Personality is potential in all creatures who possess a mind endowment ranging from the minimum of self-consciousness to the maximum of God-consciousness. But mind endowment alone is not personality, neither is spirit nor physical energy. Personality is that quality and value in cosmic reality which is exclusively bestowed by God the Father upon these living systems of the associated and co-ordinated energies of matter, mind, and spirit. Neither is personality a progressive achievement. Personality may be material or spiritual, but there either is personality or there is no personality. The other-than-personal never attains the level of the personal except by the direct act of the Paradise Father.

5:6.4 (70.5)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s the exclusive fun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창조적 의식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자유의지로 통제하는 속성을 **만유의 아버지**가 그 체계에 부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격체는 없으며, 어떤 인격체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인격에 있는 절대적 **조율사** 핵{核}과 마찬가지로, 인간 개성의 근본 속성들 역시, **만유의 아버지**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시공우주 지역 범위 안에서 행동하면서 배부신 증여물이다.

인격이전 신분의 **조율사**들이 수많은 유형의 필사 피조물에 내주하는데, 바로 이 존재들은, 필사자가 죽은 후에 궁극적 영 달성 잠재력과 함께 모른시아 피조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그렇게 보증한다. 왜냐하면, 인격있는 **아버지**의 인격이전 증여물인 영원한 **하나님** 영의 단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 정신에 내주하면, 유한한 이 인격은 신성하고 영원한 세계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궁극자**와 유사한 운명을 열망하며, 심지어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신의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이전 **조율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으며; 인간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시공우주_정신 재능에 잠재해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해방시키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神性}이 필사 피조물의 물질 생명 수여통로와 관계를 맺은 후에, 자아_의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아_결정적 및 자아_창조적인 인격체로서 체험의 바다로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필사적 사람의 체험적 인격은 어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실체로서 목격되지 않는다. 물질 자아는 정말로 그리고 **무조건으로** 인격적이다.

물질 자아는 인격과 정체성, 일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인격이전 영 **조율사** 역시,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물질적 인격과 이 선{先}인격 영{靈}은, 생존하는 불멸의 혼의 정체성을 생기게 하도록, 자신의 창조 속성들을 연합할 능력이 있다.

선행{先行}하는 원인에 절대로 의존하던 족쇄에서 사람의 내부 자아를 해방시켜 왔고, 불멸하는 혼의 성장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 계신다. 이제,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원인에 반응하는 족쇄로부터 사람이 그렇게 해방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멸하는 자아, 즉 혼의 성장을 위해 준비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이 생존하는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바라든지 또는 금지하기만 하면 되며, 이 영원한 자아는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된다. 넓은 온갖 우주 전체 중에서, 어떤 다른 존재, 세력, 창조자, 또는 매개체라도, 선택하는 필사자인격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 선택 영역에서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작용할 때, 자유의지의 절대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영원한 생존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물질적 필사자의 의지가 주권을 갖는다고 천명해 왔으며, 그 명령은 절대적이다.

personalization of the living energy systems which he endows with the attributes of relative creative consciousness and the freewill control thereof. There is no personality apart from God the Father, and no personality exists except for God the Father. The fundamental attributes of human selfhood, as well as the absolute Adjuster nucleus of the human personality, are the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acting in his exclusively personal domain of cosmic ministry.

5:6.5 (70.6) The Adjusters of prepersonal status indwell numerous types of mortal creatures, thus insuring that these same beings may survive mortal death to personalize as morontia creatures with the potential of ultimate spirit attainment. For, when such a creature mind of personality endowment is indwelt by a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eternal God, the prepersonal bestowal of the personal Father, then does this finite personality possess the potential of the divine and the eternal and aspire to a destiny akin to the Ultimate, even reaching out for a realization of the Absolute.

5:6.6 (71.1) Capacity for divine personality is inherent in the prepersonal Adjuster; capacity for human personality is potential in the cosmic-mind endowment of the human being. But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mortal man is not observable as an active and functional reality until after the material life vehicle of the mortal creature has been touched by the liberating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being thus launched upon the seas of experience as a self-conscious and a (relatively) self-determinative and self-creative personality. The material self is truly and *unqualifiedly personal*.

5:6.7 (71.2) The material self has personality and identity, temporal identity; the prepersonal spirit Adjuster also has identity, eternal identity. This material personality and this spirit prepersonality are capable of so uniting their creative attributes as to bring into existence the surviving identity of the immortal soul.

5:6.8 (71.3) Having thus provided for the growth of the immortal soul and having liberated man's inner self from the fetters of absolute dependence on antecedent causation, the Father stands aside. Now, man having thus been liberated from the fetters of causation response, at least as pertains to eternal destiny, and provision having been made for the growth of the immortal self, the soul, it remains for man himself to will the creation or to inhibit the creation of this surviving and eternal self which is his for the choosing. No other being, force, creator, or agency in all the wide universe of universes can interfere to any degree with the absolute sovereignty of the mortal free will, as it operates within the realms of choice, regarding the eternal destiny of the personality of the choosing mortal. As pertains to eternal survival, God has

피조물의 인격이 증여됨으로써, 선행{先行}하는 원인에 대해 노예처럼 반응하던 것에서 비교적 해방됐으며, 그런 모든 도덕적 존재의 인격은, 진화적이든지 아니든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에 중심을 둔다. 영원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보편적인 친족집단과 형제우애연맹을 구성하는 존재의 친밀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계속 이끌린다. 모든 인격에는 신성이 저절로 생기는 유사성이 있다.

온갖 우주의 인격 회로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에 중심을 두며, **낙원 아버지**는, 모든 수준의 자아_의식하는 실존의 모든 인격을, 직접 의식하고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인격체가 전체 창조를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사고 조율사**의 사명과는 별개로 실존한다.

모든 인격이 **낙원 섬**에 회로화 돼있듯이, 모든 정신이 **공동 행위자**에 그리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에** 회로화 돼있듯이, 모든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에 회로화 돼있으며, 이 회로는 모든 인격체의 경배를 **영원한 원본{原本}** **인격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조율사가 내주하지 않는 인격체들의 경우에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선택의_자유 속성 역시 증여하셨고, 그런 인격자들도, 신성한 사랑의 위대한 회로, 즉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인격체가 주권을 갖고 선택하도록 마련하신다. 인격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원한 모험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영원성의 문은, 자유 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자유의지 아들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데에만 반응해서 열린다.

그리고 이상{以上}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관계를 제시하려는 나의 수고를 나타낸다. 그리고 요컨대, 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우주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너희는 모두 그의 행성 자녀임을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만유의 아버지**에 대하여 발표한, 일련의 이야기 중에서 다섯째이자 마지막이다.]

decreed the sovereignty of the material and mortal will, and that decree is absolute.

5:6.9 (71.4) The bestowal of creature personality confers relative liberation from slavish response to antecedent causation, and the personalities of all such moral beings, evolutionary or otherwise, are centered in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y are ever drawn towards his Paradise presence by that kinship of being which constitutes the vast and universal family circle and fraternal circuit of the eternal God. There is a kinship of divine spontaneity in all personality.

5:6.10 (71.5)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Paradise Father is personally conscious of, and in personal touch with, all personalities of all levels of self-conscious existence. And this personality consciousness of all creation exists independently of the mission of the Thought Adjusters.

5:6.11 (71.6) As all gravity is circuited in the Isle of Paradise, as all mind is circuited in the Conjoint Actor and all spirit in the Eternal Son, so is all personality circuited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circuit unerringly transmits the worship of all personalities to the Original and Eternal Personality.

5:6.12 (71.7) Concerning those personalities who are not Adjuster indwelt: The attribute of choice-liberty is also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and such persons are likewise embraced in the great circuit of divine love,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God provides for the sovereign choice of all true personalities. No personal creature can be coerced into the eternal adventure; the portal of eternity opens only in response to the freewill choice of the freewill sons of the God of free will.

5:6.13 (72.1) And this represents my efforts to present the relation of the living God to the children of time. And when all is said and done, I can do nothing more helpful than to reiterate that God is your universe Father, and that you are all his planetary children.

5:6.14 (72.2) [This is the fifth and last of the series presenting the narrative of the Universal Father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6편. 영원한 아들

⇨ 005

유랜시아 책

007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6편
영원한 아들

섹션

소개

1.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2. 영원한 아들의 본성
3.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
4. 영원한 아들의 속성
5. 영원한 아들의 한계
6. 영 정신
7. 영원한 아들의 인격
8. 영원한 아들에 대한 깨달음

PAPER 6
THE ETERNAL SON

SECTIONS

Introduction

1. Identity of the Eternal Son
2. Nature of the Eternal Son
3. Ministry of the Father's Love
4.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5. Limitations of the Eternal Son
6. The Spirit Mind
7.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8. Realization of the Eternal Son

소개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첫” 인격 개념 및 절대 개념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히 절대적으로 표현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영원한 아들**은 항상 살아있고 신성한 **말씀**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늘 그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와 연합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몸소 현존하심을 즉각 감싸면서, 만물의 중심에 거하신다.

인간 지능의 사고{思考} 경로에 접근할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사고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시간적 기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어 왜곡은, 시간에_매인 필사 피조물 정신과 접촉하고_절충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다. 순서를 따지는 의미에서, **만유의 아버지**께 최초의 사고가 결코 있을 수 없고, 또한 **영원한 아들**에게 시작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필사자들의 시간에_제한된 정신에게, 영원에 속하는 실체들을 그런 사고 상징들로 묘사하고, 영원에 속하는 관계들을 그런 연속 시간 개념으로 나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INTRODUCTION

6:0.1 (73.1) THE Eternal Son is the perfect and final expression of the “first” personal and absolut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ccordingly, whenever and however the Father personally and absolutely expresses himself, he does so through his Eternal Son, who ever has been, now is, and ever will be, the living and divine Word. And this Eternal Son is residential at the center of all things, in association with, and immediately enshrouding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6:0.2 (73.2) We speak of God's “first” thought and allude to an impossible time origin of the Eternal Son for the purpose of gaining access to the thought channels of the human intellect. Such distortions of language represent our best efforts at contact-compromise with the time-bound minds of mortal creatures. In the sequential sense the Universal Father never could have had a first thought, nor could the Eternal Son ever have had a beginning. But I was instructed to portray the realities of eternity to the time-limited minds of mortals by such symbols of thought and to designate the relationships of eternity by such time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실체, 무조건의 영{靈}, 그리고 절대 인격이라는 **낙원 아버지**의 보편적이고 무한한 개념이 영적으로 인격화한 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자 정체성{正體性}을 신성하게 계시한다. **아들**의 완전한 인격은, **아버지**가 실제로 영적이고, 의지적이며, 의도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근원이심을 드러낸다.

낙원 삼위일체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다소 연속적인 개념을 시간세계의 유한한 지성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애쓰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최초 인격적, 보편적, 및 무한한 개념”을 참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락된 권한을 활용한다. **신격**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념이든지 인간 정신에게 전달하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런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념 가운데 일부를 유한한 정신에게 제공하게 될, 그런 용어를 이용한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으며; 두 분 다 무조건 영원하시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유래했음에도, **아버지** 자신과 대등하게 영원한 **아들**의 이 신비를, 어떤 시간 피조물이든지 결코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영원한 아들은, 원본{原本}이고 독생{獨生}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아들 하나님**이고, **신격**의 **제2 인격자**이며, 만물의 동역 창조자이다. **아버지**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이신 것처럼, **영원한 아들**은 **위대한 제2 근원 및 중심**이다.

영원한 아들은 온갖 우주의 영적 정부{政府}에서 신성한 경영자이며 영적 중심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첫째로는 창조자시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관이시며; **영원한 아들**은 첫째로는 공동창조자시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 경영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들**은 그 영이 인격적으로 계시{啓示}된 분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절대 의지**시며; **제2 근원 및 중심**은 **절대 인격**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아들**과 협력하거나 **아들**이 동격으로 행동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창조자로서 활동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 **신약성경** 기록자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썼을 때, **영원한 아들**을 언급한 것이었다면, 그 말이 진리였을 것이다

concepts of sequentiality.

6:0.3 (73.3) The Eternal Son is the spiritual personalization of the Paradise Father's universal and infinite concept of divine reality, unqualified spirit, and absolute personality. And thereby does the Son constitute the divine revelation of the creator ident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 perfect personality of the Son discloses that the Father is actually the eternal and universal source of all the meanings and values of the spiritual, the volitional, the purposeful, and the personal.

6:0.4 (73.4) In an effort to enable the finite mind of time to form some sequential concept of the relationships of the eternal and infinite beings of the Paradise Trinity, we utilize such license of conception as to refer to the “Father's first personal, universal, and infinite concept.” It is impossible for me to convey to the human mind any adequate idea of the eternal relations of the Deities; therefore do I employ such terms as will afford the finite mind something of an idea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eternal beings in the subsequent eras of time. We believe the Son sprang from the Father; we are taught that both are unqualifiedly eternal. It is apparent, therefore, that no time creature can ever fully comprehend this mystery of a Son who is derived from the Father, and yet who is co-ordinately eternal with the Father himself.

1. IDENTITY OF THE ETERNAL SON

6:1.1 (73.5) The Eternal Son is the original and only-begotten Son of God. He is God the Son, the Second Person of Deity and the associate creator of all things. As the Father is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so the Eternal Son is the Second Great Source and Center.

6:1.2 (74.1) The Eternal Son is the spiritual center and the divine administrator of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is first a creator and then a controller; the Eternal Son is first a cocreator and then a *spiritual administrator*. “God is spirit,” and the Son is a personal revelation of that spiri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Volitional Absolute;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is the Personality Absolute.

6:1.3 (74.2) The Universal Father never personally functions as a creator except in conjunction with the Son or with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Son. Had the New Testament writer referred to the Eternal Son, he would have uttered the truth when he wrot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했을 때,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신성한 존재와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그를 봤고, 우리가 자세히 관찰했으며, 심지어 **생명의 말씀**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증여 **아들**은, **원본(原本)** **아들**이 그랬던 것과 정말로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에서도 이렇게 암시됐다: “오, **아버지**시여,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뜻으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한 아들은, 다양한 우주에서 다른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중앙우주에서는, **동격 근원**, **공동 창조주**, 그리고 **동료 절대자**로 알려진다. 연방우주 본부인 **우버사**에서는 그 **아들**을, **동격 영 중심**, 그리고 **영원한 영 관리자**라고 한다. 너희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서는, 이 **아들**이 **영원한 제2 근원 및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들 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인간거주 구체들로 이뤄진 너희 체계에서는 아니지만, 너희 세계에서는, 이 **원본(原本)** **아들**이, **유란시아** 필사자인 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한 동격 **창조주 아들**, 즉 **네바돈의 미가엘**과 혼동돼 왔다.

낙원 아들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명칭을 항상 습관처럼 예비해 두는데, 이는 **제2 근원 및 중심**이고, 완전성과 권력의 중심 우주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공동창조자인 동시에, 무한한 **신격**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신성한 **아들**들의 공동창조자인, 이 **원본 아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다.

2. 영원한 아들의 본성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처럼 변함없고 무한히 신뢰할 만하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똑같이 영적이고, 정말로 똑같이 무한한 영이다. 낮게 근원된 너희에게는, 접근성에서 **만유의 아버지**보다 너희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좀 더 친히 대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시며; 사실상, **영원한 아들**은 온갖 우주에 몸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은: **영원한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동격 **창조주 아들**에 대해서도 참이었고, 이제도 참되고, 영원토록 참되다.

아들은 본성에서 전적으로 **영 아버지**와 같으시다.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할 때, 우리는

6:1.4 (74.3) When a Son of the Eternal Son appeared on Urantia, those who fraternized with this divine being in human form alluded to him as “He who was from the beginning, whom we have heard, whom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om we have looked upon, and our hands have handled, even the Word of life.” And this bestowal Son came forth from the Father just as truly as did the Original Son, as is suggested in one of his earthly prayers: “And now, O my Father, glorify me with your own 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is world was.”

6:1.5 (74.4) The Eternal Son is known by different names in various universes. In the central universe he is known as the Co-ordinate Source, the Cocreator, and the Associate Absolute.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we designate the Son as the Co-ordinate Spirit Center and as the Eternal Spirit Administrator.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this Son is of record as the Second Eternal Source and Center. The Melchizedeks speak of him as the Son of Sons. On your world, but not in your system of inhabited spheres, this Original Son has been confused with a co-ordinate Creator Son, Michael of Nebadon, who bestowed himself upon the mortal races of Urantia.

6:1.6 (74.5) Although any of the Paradise Sons may fittingly be called Sons of God, we are in the habit of reserving the designation “the Eternal Son” for this Original So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cocreator with the Universal Father of the central universe of power and perfection and cocreator of all other divine Sons who spring from the infinite Deities.

2. NATURE OF THE ETERNAL SON

6:2.1 (74.6) The Eternal Son is just as changeless and infinitely dependable as the Universal Father. He is also just as spiritual as the Father, just as truly an unlimited spirit. To you of lowly origin the Son would appear to be more personal since he is one step nearer you in approachability than is the Universal Father.

6:2.2 (74.7) The Eternal Son is the eternal Word of God. He is wholly like the Father; in fact, the Eternal Son is God the Father personally manifest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us it was and is and forever will be true of the Eternal Son and of all the co-ordinate Creator Sons: “He who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6:2.3 (74.8) In nature the Son is wholly like the spirit Father. When we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실제로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한다. **아들 하나님**은, 본성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실제적이고 영원하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무한하고 초월적인 정의(正義)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하신 성품까지도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공유하고, 모든 불완전한 피조물이 신{神}의 완전성을 달성하려고 영적으로 노력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책임도 함께 나누신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이라는 성품과 영성(靈性)이라는 속성을 모두 지니셨다.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 인격과 영이 충만한 분 **이시며**; **아들**은, 온갖 우주의 영적 정부를 친히 경영할 때, 이 자질을 드러내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버지**의 이 영 본성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신격** 안에 집중되고 인격화돼 있다. 모든 영적 특질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보편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아들** 안에서 분명히 크게 증진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영 본성을 **아들**과 공유하듯이, 그들은, **공동 행위자**, 즉 **무한한 영**과 더불어, 신성한 영을 그렇게 충분히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함께 공유하신다.

보편적 가치를 지닌, 배타적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의 실현에 **아들**이 더 많이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만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다.

신성하게 선한 면에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우주 자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며; **영원한 아들**은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로서 또한 형제로서 보살피신다.

3.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

아들은 **삼위일체**의 응보와 정의를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무한히 인격화함으로써, 두 가지 신성 특질이 빛을 잃게 만들며; **아들**은 신{神}의 사랑이 우주들에게 계시{啓示}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아들**은 자비시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방법으로 피조물에게 자비를 보여 줄 수 있는데, **아버지**처럼 근본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에, **만유의 아버지**의 다른 모든 아들이 겪는 자녀신분 체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물에게 위대한 자비 사역자{事役者}시다. 자비는 **아들**의 영적 성품의 본질이다. **영원한 아들**의 명령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영 회로를 따라 나아갈 때, 자비{慈悲}의 격

actually we at the same time worship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God the Son is just as divinely real and eternal in nature as God the Father.

6:24 (75.1) The Son not only possesses all the Father's infinite and transcendent righteousness, but the Son is also reflective of all the Father's holiness of character. The Son shares the Father's perfection and jointly shares the responsibility of aiding all creatures of imperfection in their spiritual efforts to attain divine perfection.

6:25 (75.2) The Eternal Son possesses all the Father's character of divinity and attributes of spirituality. The Son is the fullness of God's absoluteness in personality and spirit, and these qualities the Son reveals in his personal management of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6:26 (75.3) God is, indeed, a universal spirit; God is spirit; and this spirit nature of the Father is focalized and personalized in the Deity of the Eternal Son. In the Son all spiritual characteristics are apparently greatly enhanced by differentiation from the univers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the Father shares his spirit nature with the Son, so do they together just as fully and unreservedly share the divine spirit with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Spirit.

6:27 (75.4) In the love of truth and in the creation of beauty the Father and the Son are equal except that the Son appears to devote himself more to the realization of the exclusively spiritual beauty of universal values.

6:28 (75.5) In divine goodness I discern no differenc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 Father loves his universe children as a father; the Eternal Son looks upon all creatures both as father and as brother.

3. MINISTRY OF THE FATHER'S LOVE

6:31 (75.6) The Son shares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Trinity but overshadows these divinity traits by the infinite personalization of the Father's love and mercy; the Son is the revelation of divine love to the universes. As God is love, so the Son is mercy. The Son cannot love more than the Father, but he can show mercy to creatures in one additional way, for he not only is a primal creator like the Father, but he is also the Eternal Son of that same Father, thereby sharing in the sonship experience of all other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6:32 (75.7) The Eternal Son is the great mercy minister to all creation. Mercy is the essence of the Son's spiritual character. The mandates of the Eternal Son, as they go forth over the spirit circuits

조에 맞춰진다.

영원한 아들의 사랑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한 근원, 즉 사랑이신 **아버지**를 너희가 먼저 감지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무한한 영** 그리고 그의 거의 무한한 보살피는 인격체 무리가 광범하게 베푸는 섬김에, 이 무한한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봐야 한다.

영원한 아들의 사역은, 사랑의 **하나님**을 온갖 우주에 드러내기에 몰두한다. 이 신성한 **아들**은, 인자하신 **아버지**에게 낮은 피조물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시간세계의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설득하는, 천박한 과업에 맞물려 있지 않다. 공간의 물질 세계들에 있는 낮은 피조물을 위해 자비를 보이시도록, **영원한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께 호소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지! 그런 **하나님** 개념은 유치하고 우스꽝스럽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비 사역은, 보편적인 사랑과 무한한 동정심을 갖는 **아버지**의 심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자비의 실질적이고 영원한 원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시다. 자비는 적용된 사랑, 즉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작용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우주의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남녀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사랑이 납득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더 잘 비유되는 한편, **영원한 아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애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정말 유치할 정도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사이에, 신성한 내용에서가 아니라, 표현의 특성과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인간 정신에게 전하도록 기대하면서 내가 채택했다.

4. 영원한 아들의 속성

영원한 아들은, 영 수준의 시공우주 실체를 자극하며; **아들**의 영적 능력은, 모든 우주의 실체들과 갖는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영 인력을 절대로 장악함으로써, 그는 차별화 되지 않은 모든 영 에너지의 상호연합체, 그리고 실체화 된 모든 영 실체를 완전하게 통제한다. 조각나지 않은 모든 순수한 영과 모든 영적 존재 및 가치는, 시초의 **낙원 아들**의 무한한 흡인력{吸引力}에 반응한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무제한의 우주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원본(原本)** **아들**의 영 인력과 영 능력이, 그런 끝없는 창조에 대한 영적 통제와 효율적 경영에 전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아들은 영적 영역에서만 전능하시다. 우주 경영의 영원한 경륜에서는,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을 결코 구경하지 못하며; **신격**들이 우주 사역에서 쓸데없이 되풀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re keyed in tones of mercy.

6.3.3 (75.8) To comprehend the love of the Eternal Son, you must first perceive its divine source, the Father, who is love, and then behold the unfolding of this infinite affection in the far-flung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and his almost limitless host of ministering personalities.

6.3.4 (75.9) The ministry of the Eternal Son is devoted to the revelation of the God of love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divine Son is not engaged in the ignoble task of trying to persuade his gracious Father to love his lowly creatures and to show mercy to the wrongdoers of time. How wrong to envisage the Eternal Son as appealing to the Universal Father to show mercy to his lowly creatures on the material worlds of space! Such concepts of God are crude and grotesque. Rather should you realize that all the merciful ministrations of the Sons of God are a direct revelation of the Father's heart of universal love and infinite compassion. The Father's love is the real and eternal source of the Son's mercy.

6.3.5 (75.10) God is love, the Son is mercy. Mercy is applied love, the Father's love in action in the person of his Eternal Son. The love of this universal Son is likewise universal. As love is comprehended on a sex planet, the love of God is more comparable to the love of a father, while the love of the Eternal Son is more like the affection of a mother. Crude, indeed, are such illustrations, but I employ them in the hope of conveying to the human mind the thought that there is a difference, not in divine content but in quality and technique of expression, between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love of the Son.

4.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6.4.1 (76.1) The Eternal Son motivates the spirit level of cosmic reality; the spiritual power of the Son is absolute in relation to all universe actualities. He exercises perfect control over the interassociation of all undifferentiated spirit energy and over all actualized spirit reality through his absolute grasp of spirit gravity. All pure unfragmented spirit and all spiritual beings and values are responsive to the infinite drawing power of the primal Son of Paradise. And if the eternal future should witness the appearance of an unlimited universe, the spirit gravity and the spirit power of the Original Son will be found wholly adequate for the spiritual control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such a boundless creation.

6.4.2 (76.2) The Son is omnipotent only in the spiritual realm. In the eternal economy of universe administration, wasteful and needless repetition of function is never encountered; the Deities are not

는다.

원본 아들의 편재성(遍在性)이, 온갖 우주의 영적 통일성을 성립시킨다. 모든 창조의 영적 결속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영의, 어디서나 활약하는 현존에 기초한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 마음 속에 그릴 때, 우리는 이를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임재로부터 구분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편재하셔야 하지만, 그런 편재성은, **영원한 아들**이 도처에서 영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이중적인 영적 본성을 갖는 **아버지_아들** 현존의 모든 상황에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격체와 접촉할 때, **아버지**는 인격 회로에서 활동하신다. 영적 창조물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탐지할 수 있을 때, **아버지**는 **신격** 총체의 단편들 속에 나타나시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은, 우주들에서 언제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단독으로 독특하고 독점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아들**의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분화(分化)된 현존의 영적 기능과 조화를 이룬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으로 편재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은, 가장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주위에 계시지만, **신비 관찰자**처럼 네 안에 그리고 너의 일부로서 계시지는 않는다.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이 인간 정신을 신{神}의 입장에 점진적으로 순응시키는데, 그리하여 그런 상승하는 정신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전능한 영_인력 회로의 영적 흡인력에 점점 더 민감하게 된다.

원본 아들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아_의식한다. 지혜의 면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온전히 동일하시다. 지식의 영역, 즉 전지성(全知性)에서, 우리는 **제1 근원**과 **제2 근원**을 구별 할 수 없으며; **아버지**처럼 **아들**도 모든 것을 아시며; **아들**은 어떤 우주 사건에도 결코 놀라시지 않으며;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납득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영{靈}과 영성화된 존재의 숫자와 소재{所在}를 실제로 아신다. **아들**은, 자신의 편재하는 영 덕택으로 모든 사물을 아실뿐 아니라, **아버지** 및 **공동 행위자**와 동등하게, **지존하신 분**의 방대한 반사성을 지닌 지성을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 지성은 일곱 연방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자각하신다. 그리고 **낙원 아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전지하시다.

자애롭고 자비롭고 돌보는 영적 인격체로서, **영원한 아들**은 전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만유**의

given to useless duplication of universe ministry.

6:4.3 (76.3) The omnipresence of the Original Son constitutes the spiritual unit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piritual cohesion of all creation rests upon the everywhere activ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of the Eternal Son. When we conceive of the Father's spiritual presence, we find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it in our thinking from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 spirit of the Father is eternally resident in the spirit of the Son.

6:4.4 (76.4) The Father must be spiritually omnipresent, but such omnipresence appears to be inseparable from the everywhere spirit activities of the Eternal Son. We do, however, believe that in all situations of Father-Son presence of a dual spiritual nature the spirit of the Son is co-ordinate with the spirit of the Father.

6:4.5 (76.5) In his contact with personality, the Father acts in the personality circuit. In his personal and detectable contact with spiritual creation, he appears in the fragments of the totality of his Deity, and these Father fragments have a solitary, unique, and exclusive function wherever and whenever they appear in the universes. In all such situations the spirit of the Son is co-ordinate with the spiritual function of the fragmented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6:4.6 (76.6) Spiritually the Eternal Son is omnipresent. The spirit of the Eternal Son is most certainly with you and around you, but not within you and a part of you like the Mystery Monitor. The indwelling Father fragment adjusts the human mind to progressively divine attitudes, whereupon such an ascending mind becomes increasingly responsive to the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all-powerful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6:4.7 (76.7) The Original Son is universally and spiritually self-conscious. In wisdom the Son is the full equal of the Father. In the realms of knowledge, omniscience, we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ources; like the Father, the Son knows all; he is never surprised by any universe event; he comprehends the end from the beginning.

6:4.8 (77.1) The Father and the Son really know the number and whereabouts of all the spirits and spiritualized being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Not only does the Son know all things by virtue of his own omnipresent spirit, but the Son, equally with the Father and the Conjoint Actor, is fully cognizant of the vast reflectivity intelligence of the Supreme Being, which intelligence is at all times aware of all things that transpire on all the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re are other ways in which the Paradise Son is omniscient.

6:4.9 (77.2) The Eternal Son, as a loving, merciful, and ministering spiritual personality, is wholly and

아버지와 동일하신 한편, 낮은 영역에서 상승하는 존재들과 갖는 모든 자비롭고 애정 어린 개인 접촉에서,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그렇게 자주 자신을 수여하는 지방우주의 **낙원 아들**들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아들**도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며, 똑같이 인쇄하고 오려_참으신다.

영원한 아들의 속성에 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에 기술한 예외들을 제외하고,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연구하기만 하면 된다.

5. 영원한 아들의 한계

영원한 아들은, 물리적 영역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으며, **공동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는, 피조 존재들에게 정신 사역 수준에서 활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자격조건들은, **영적 전지성**(全知性)과 편재성 그리고 전능성이라는 모든 신성한 속성을 **영원한 아들**이 충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영원한 아들은 **신격 절대자**의 무한성에 내재된 영 잠재력을 직접 채우지는 않지만, 이 잠재력은, 실제화 될 때 **아들**의 영_인력 회로의 전능한 지배를 받게 된다.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영원한 아들**은 인격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지만, **아들**은 **아버지** 없이 인격을 증여하지 않는다. **아들**이 방대한 영 무리를 기원시키지만, 그런 파생된 존재들은 인격체가 아니다. **아들**이 인격체를 창조할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 창조주**와 함께 창조한다. **영원한 아들**은 그런 인격체의 공동_창조자이지만, 어떤 존재에게도 인격을 증여하지 않으며, 스스로, 즉 혼자서는 결코 인격있는 존재를 창조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행위 제한이, 인격적이지_않은 실체의 유형들 일부 또는 전부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아들**에게서 빼앗지는 않는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 특권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버지**는, **원본 아들**을 영존화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창조적 속성을 소유하는 추가적인 **아들**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행위에서, 차후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그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이 동격 **아들**들이 다 산출되면, 창조자신분의 특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 **영원한 아들**은, 오직 첫 인격화, 즉 직접 인격화할 경우에만 창조자신분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조주 아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 연합할 때 두 분의 목적을 달성하지만;지방우주에서 가장

infinitely equal with the Universal Father, while in all those merciful and affectionate personal contacts with the ascendant beings of the lower realms the Eternal Son is just as kind and considerate, just as patient and long-suffering, as are his Paradise Sons in the local universes who so frequently bestow themselves up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6.4.10 (77.3) It is needless further to expatiate on the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With the exceptions noted, it is only necessary to study the spiritual attributes of God the Father to understand and correctly evaluate the attributes of God the Son.

5. LIMITATIONS OF THE ETERNAL SON

6.5.1 (77.4) The Eternal Son does not personally function in the physical domains, nor does he function, except through the Conjoint Actor, in the levels of mind ministry to creature beings. But these qualifications do not in any manner otherwise limit the Eternal Son in the full and free exercise of all the divine attributes of spiritual omniscience, omnipresence, and omnipotence.

6.5.2 (77.5) The Eternal Son does not personally pervade the potentials of spirit inherent in the infinity of the Deity Absolute, but as these potentials become actual, they come within the all-powerful grasp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Son.

6.5.3 (77.6) Personality is the exclusive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derives personality from the Father, but he does not, without the Father, bestow personality. The Son gives origin to a vast spirit host, but such derivations are not personalities. When the Son creates personality, he does so in conjunction with the Father or with the Conjoint Creator, who may act for the Father in such relationships. The Eternal Son is thus a cocreator of personalities, but he bestows personality upon no being and of himself, alone, never creates personal beings. This limitation of action does not, however, deprive the Son of the ability to create any or all types of other-than-personal reality.

6.5.4 (77.7) The Eternal Son is limited in transmittal of creator prerogatives. The Father, in eternalizing the Original Son, bestowed upon him the power and privilege of subsequently joining with the Father in the divine act of producing additional Sons possessing creative attributes, and this they have done and now do. But when these co-ordinate Sons have been produced, the prerogatives of creatorship are apparently not further transmissible. The Eternal Son transmits creatorship powers only to the first or direct personalization. Therefore, when the Father and the Son unite to personalize a Creator Son, they

높은 **아들**들의 경우에,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속성이 매우 제한된 채 반영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이렇게 실존하게 된 **창조주 아들**은, 차후에 자신이 창조할 다양한 계층의 **아들**들에게 창조자신분의 특권을 전달하거나 위임할 수가 결코 없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고 오로지 인격있는 존재로서, **무한한 영** 및 **만유의 아버지**가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본성을 분화시킬 수 없으며, 자기 자아성{自我性}의 개체화된 부분을 다른 실체나 인격자들에게 배분할 수 없고 증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창조물을 감싸도록 무제한의 영으로서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으며, 모든 영 인격체와 영적 실체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물에게 영 **아버지**를 몸소 묘사하는 분임을 늘 기억하라. **아들**은 인격적이고 **신격** 의미에서 볼 때 다만 인격적일 뿐이며; 그런 신성한 절대 인격은 분해될 수 없고 분화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있는 분이지만, 그들은 그런 **신격**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것이기도 하다.

영원한 아들은 **사고 조율사**의 증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더라도,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께서 **사고 조율사**들을 증여하기로 입안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만들자”고 **아들**에게 제안 하셨을 때, 그 계획에 만족하고 끝없는 협동을 서약하면서, **만유의 아버지**와 협의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단편이 너희 안에 거주하듯이, **아들**의 영 현존이 너희를 감싸며, 동시에 이들은 너희의 영적 진보를 위해 영원히 하나가 되어 일하신다.

6. 영 정신

영원한 아들은 영이고, 정신을 소유하시지만, 필사 정신이 납득할 수 있는 정신이나 영은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유한한 수준, 시공우주 수준, 물질적 수준, 그리고 인격적인 수준에서 정신을 감지한다. 또한 사람은, 인격있는 수준 이하에서 (곤 동물에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서 정신 현상을 관찰하지만, 초물질 존재와 연합했을 때, 그리고 독자적 영 인격체의 일부분으로서 연합했을 때, 정신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정신은, 실존의 영 수준에 관련할 때, 그리고 지성{知性}의 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달리 규정돼야 한다. 영과 직접 연합된 그런 종류의 정신은, 영과 물질을 조화시키는 그 정신에 비교될 수 없고, 오직 물질과만 연합된 그 정신에도 비교될 수 없다.

영은 정체성의 여러 국면을 항상 의식하고 유념하며 점유한다. 어떤 국면에 정신이 없다면, 영

achieve their purpose; but the Creator Son thus brought into existence is never able to transmit or delegate the prerogatives of creatorship to the various orders of Sons which he may subsequently create, notwithstanding that, in the highest local universe Sons, there does appear a very limited reflection of the creative attributes of a Creator Son.

6:5.5 (78.1) The Eternal Son, as an infinite and exclusively personal being, cannot fragmentize his nature, cannot distribute and bestow individualized portions of his selfhood upon other entities or persons as d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But the Son can and does bestow himself as an unlimited spirit to bathe all creation and unceasingly draw all spirit personalities and spiritual realities to himself.

6:5.6 (78.2) Ever remember,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portrayal of the spirit Father to all creation. The Son is personal and nothing but personal in the Deity sense; such a divine and absolute personality cannot be disintegrated or fragmentized. God the Father and God the Spirit are truly personal, but they are also everything else in addition to being such Deity personalities.

6:5.7 (78.3) Though the Eternal Son can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he did sit in council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the eternal past, approving the plan and pledging endless co-operation, when the Father, in projecting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proposed to the Son, “Let us make mortal man in our own image.” And as the spirit fragment of the Father dwells within you, so does the spirit presence of the Son envelop you, while these two forever work as one for your spiritual advancement.

6. THE SPIRIT MIND

6:6.1 (78.4) The Eternal Son is spirit and has mind, but not a mind or a spirit which mortal mind can comprehend. Mortal man perceives mind on the finite, cosmic, material, and personal levels. Man also observes mind phenomena in living organisms functioning on the subpersonal (animal) level, but it is difficult for him to grasp the nature of mind when associated with supermaterial beings and as a part of exclusive spirit personalities. Mind must, however, be differently defined when it refers to the spirit level of existence, and when it is used to denote spirit functions of intelligence. That kind of mind which is directly allied with spirit is comparable neither to that mind which coordinates spirit and matter nor to that mind which is allied only with matter.

6:6.2 (78.5) Spirit is ever conscious, minded, and possessed of varied phases of identity. Without

존재들의 공동체에 영적 의식이 있을 수 없다. 정신과 대등한 것, 즉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역량이 **신격**에 고유하게 있다. **신격**은, 인격있는, 인격이전의, 인격을 초월한, 또는 인격아닌 분일 수도 있으나, **신격**에 정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시 말하자면, 유사한 실재나, 존재, 또는 인격체들과,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수는 결코 없다.

영원한 아들의 정신은 **아버지**의 정신과 같지만,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정신과도 같지 않으며, **아버지**의 정신과 함께 **공동 창조주**의 다양하고 광범한 정신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신, 즉 **제3 근원 및 중심**의 절대 정신의 원조(元祖)인 그 지능은, 아마 **사고 조율사**의 선(先)정신 속에 가장 잘 묘사돼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이 완전히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 밖에 있음에도, 그들이 정신_이전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그들은 그들이 알려진 대로 알며;사람의 생각에 상당하는 것을 향유(享有)한다.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영적(靈的) 이시며;사람은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며;그러므로 **영원한 아들**의 영 인격에 속하거나, **낙원**을 에워싸는 영적인 일곱 구체에 속하거나, **낙원 아들**이 창조한 인격아닌 것들의 본질에 속하는 많은 것은, 너희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모른시아 상생을 완성한 후에 영 신분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연방우주를 거쳐서 **하보나**에 이를 때, “영의 정신”--곧 영적 통찰력--을 부여받기 시작하면서, 이 영_숨겨진 신비 가운데 다수가 분명해질 것이다.

7. 영원한 아들의 인격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가 조건 없는 인격 속박으로부터 삼자일체(三者一體)되는 기법으로 탈출한, 바로 그 무한한 인격체이고, 그 덕분으로 그는, **창조주** 및 피조물의 항상_팽창하는 우주에 그 후로 계속 끝없이 풍부하게 자신을 증여해 왔다. **아들**은 **절대 인격**이시며;**하나님**은 **아버지** 인격이시다--곧 인격의 근원, 인격의 증여자, 인격의 원인이시다. **원본 아들**이 자신의 인격을 **낙원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획득하는 것과 똑같이, 인격있는 존재마다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인격을 획득한다.

낙원 아들의 인격은 절대적이고 순전히 영적이며, 이 절대 인격은 또한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原型)인데, 우선은, **공동 행위자**에게 **아버지**의 인격을 증여할 때의 원형이고, 다음으로는, 광범한 우주 전반에 걸친 그의 수많은 피조물에게 인격을 증여할 때의 원형이다.

영원한 아들은, 진실로 자비로운 사역자이고,

mind in some phase there would be no spiritual consciousness in the fraternity of spirit beings. The equivalent of mind, the ability to know and be known, is indigenous to Deity. Deity may be personal, prepersonal, superpersonal, or impersonal, but Deity is never mindless, that is, never without the ability at least to communicate with similar entities, beings, or personalities.

6:6.3 (78.6) The mind of the Eternal Son is like that of the Father but unlike any other mind in the universe, and with the mind of the Father it is ancestor to the diverse and far-flung minds of the Conjoint Creator. The mind of the Father and the Son, that intellect which is ancestral to the absolut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perhaps best illustrated in the premind of a Thought Adjuster, for, though these Father fragments are entirely outside of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they have some form of premind; they know as they are known; they enjoy the equivalent of human thinking.

6:6.4 (78.7) The Eternal Son is wholly spiritual; man is very nearly entirely material; therefore much pertaining to the spirit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o his seven spiritual spheres encircling Paradise and to the nature of the impersonal creations of the Paradise Son, will have to await your attainment of spirit status following your completion of the morontia ascension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then, as you pass through the superuniverse and on to Havona, many of these spirit-concealed mysteries will clarify as you begin to be endowed with the “mind of the spirit” — spiritual insight.

7.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6:7.1 (79.1) The Eternal Son is that infinite personality from whose unqualified personality fetters the Universal Father escaped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and by virtue of which he has ever since continued to bestow himself in endless profusion upon his ever-expanding universe of Creators and creatures. The Son is *absolute personality*; God is *father personality* — the source of personality, the bestower of personality, the cause of personality. Every personal being derives personality from the Universal Father just as the Original Son eternally derives his personality from the Paradise Father.

6:7.2 (79.2) The personality of the Paradise Son is absolute and purely spiritual, and this absolute personality is also the divine and eternal pattern, first, of the Father's bestowal of personality upon the Conjoint Actor and, subsequently, of his bestowal of personality upon the myriads of his creatures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6:7.3 (79.3) The Eternal Son is truly a merciful

신성한 영이며, 영적 능력이고, 진정한 인격체이다. **아들**은, 우주들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본성이다--곧 인격없는, 신성을 벗어난, 비영적인, 그리고 순전히 잠재적인 모든 것을 제외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총합과 내용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인격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인간 정신에게 단어로 묘사함으로써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유의 아버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방해하도록, 거의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작동한다. 너희는 자신이 **낙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 절대 인격체의 성품을 유한한 정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 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8. 영원한 아들에 대한 깨달음

인격의 정체성, 본성, 및 다른 속성들을 살펴 보면, **영원한 아들**은 충분히 동등한, 완전히 보완하는, 그리고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의 동격자{同格者}이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심과 같은 느낌으로, **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높은지 낮은지, 그분들의 우주 가족을 구성한다.

아들의 성품을 감상하기 위해, 너희는 **아버지**의 계시된 신성한 성품을 연구해야 하며; 그분들은 영원히 하나시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 낮은 계층의 지성체는, 신성한 인격체로서의 두 분을 실질적으로 분간할 수 없다. **신격**들 스스로의 창조 행위로 인해 기원된 자들에게는, 그분들을 분간하여 인식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중앙우주와 **낙원**에서 출생한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자로 볼 뿐만 아니라, 우주 경영의 한정된 범위에서 작용하는, 분리된 두 인격체로 인식한다.

인격자로서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분리된 개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지만; 우주들의 경영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엮이고 상호관련돼 있어서, 그분들 사이를 구별하기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우주들의 직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혼동스런 상호연합체들 속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들의 운영을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항상 유익하지는 않으며; 다만 **하나님**은 창시하는 사고{思考}이시고, **아들**은 표현이_풍부한 말씀이시라고 기억하기 바란다. 각 지방우주에서는, 나눌 수 없는 이 성질이 **창조주 아들**의 신성 안에 인격화되어 있는데, 그는 천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 속한 피조물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함께 나타낸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지지만, 그의 **낙원 아들**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그리고 **무한한 영**의 끈기 있는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minister, a divine spirit, a spiritual power, and a real personality. The Son is the spiritual and personal nature of God made manifest to the universes — the sum and substa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divested of all that which is nonpersonal, extradivine, nonspiritual, and pure potential. But it is impossible to convey to the human mind a word picture of the beauty and grandeur of the supernal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Everything that tends to obscure the Universal Father operates with almost equal influence to prevent the conceptual recognition of the Eternal Son. You must await your attainment of Paradise,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why I was unable to portray the character of this absolute personalit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finite mind.

8. REALIZATION OF THE ETERNAL SON

6:8.1 (79.4) Concerning identity, nature, and other attributes of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full equal, the perfect complement, and the eternal counterpart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ame sense that God is the Universal Father, the Son is the Universal Mother. And all of us, high and low, constitute their universal family.

6:8.2 (79.5) To appreciate the character of the Son, you should study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character of the Father; they are forever and inseparably one. As divine personalities they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by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They are not so difficult of separate recognition by those whose origin is in the creative acts of the Deities themselves. Beings of nativity in the central universe and on Paradise discern the Father and the Son not only as one personal unity of universal control but also as two separate personalities functioning in definite domains of universe administration.

6:8.3 (79.6) As persons you may conceiv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s separate individuals, for they indeed are; bu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s they are so intertwined and interrelated that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m. When, in the affairs of the universes, the Father and the Son are encountered in confusing interassociations, it is not always profitable to attempt to segregate their operations; merely recall that God is the initiating thought and the Son is the expressionful word. In each local universe this inseparability is personalized in the divinity of the Creator Son, who stands for both Father and Son to the creatures of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6:8.4 (80.1) The Eternal Son is infinite, but he is approachable through the persons of his Paradise Sons and through the patient ministry of the Infinite

낙원 아들들의 증여하는 봉사와 **무한한 영**의 피조물에 대한 애정 어린 사역 없이는, 물질적으로 기원된 존재들이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할 희망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은 똑같이 참되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필사자는, 이 천상의 매개체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확실하게 **낙원**에 도달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웅대한 **아들들 중 아들**의 인격있는 현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아들은 필사 인격이 달성해야 할 원형 {原型}일지라도, 너는 **아버지**와 **영**, 양쪽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아버지**는 너의 인간 인격을 실제로 증여하신 분이고, **무한한 영**은 너의 필사 정신의 절대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낙원**의 영적 진보 경로에서 상승할 때, **영원한 아들**의 인격이 너에게 점점 더 실제적이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영성화하는 너의 정신은, 무한하게 영적인 그의 정신의 실체를 더 많이 식별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아들이라는 개념은, 너의 물질 정신 또는 그 이후의 모른시아 정신 속에서는 결코 환히 빛날 수 없을 것이며; 네가 영성화 되고 영 상승을 시작하기까지, **영원한 아들**의 인격을 납득하는 것은, **낙원**에서 기원된 **창조주 아들**의 인격에 대한 너의 개념만큼 생생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창조주 아들**은 인격자 속에서 그리고 한 인격자로서, **유란시아**에서 한때 육신화 했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창조주 아들**이, 더 독자적으로 영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인격적인, **낙원**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너의 무능력을, 지방우주에서 체험하는 동안 내내 보상해 줘야 한다. 네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통해 진보할 때, 너의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에 대한 생생한 모습과 심원한 기억을 뒤로하고 떠날 때, 이 물질 체험과 모른시아 체험의 소실은, **낙원**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강화되는 납득과 계속 넓어지는 개념들로 보충될 것인데, 그의 실체와 친밀감은, 네가 **낙원**을 향해 진보함에 따라서 언제까지나 증대될 것이다.

영원한 아들은 웅대하고 영광스런 인격체이다. 것처럼 무한한 존재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필사적이고 물질적인 정신의 능력을 벗어남에도, 그는 확실히 인격자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해 잘 안다. 나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현존 앞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의 인자한 분부를 실행하기 위해 우주에서 바깥쪽으로 여행했다.

[**낙원**의 **영원한 아들**을 설명하는 본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언자**가 작성했음]

Spirit. Without the bestowal service of the Paradise Sons and the loving ministry of the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beings of material origin could hardly hope to attain the Eternal Son. And it is equally true: With the help and guidance of these celestial agencies the God-conscious mortal will certainly attain Paradise and sometime stand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is majestic Son of Sons.

6:8.5 (80.2) Even though the Eternal Son is the pattern of mortal personality attainment, you find it easier to grasp the reality of both the Father and the Spirit because the Father is the actual bestower of your human personality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absolute source of your mortal mind. But as you ascend in the Paradise path of spiritual progression,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will become increasingly real to you, and the reality of his infinitely spiritual mind will become more discernible to your progressively spiritualizing mind.

6:8.6 (80.3) Never can the concept of the Eternal Son shine brightly in your material or subsequent morontial mind; not until you spiritize and commence your spirit ascension will the comprehens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begin to equal the vividness of your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the Creator Son of Paradise origin who, in person and as a person, onetime incarnated and lived on Urantia as a man among men.

6:8.7 (80.4) Throughout your local universe experience the Creator Son, whose personality is comprehensible by man, must compensate for your inability to grasp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more exclusively spiritual, but none the less personal, Eternal Son of Paradise. As you progress through Orvonton and Havona, as you leave behind you the vivid picture and deep memories of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the passing of this material and morontia experience will be compensated by ever-enlarging concepts and intensifying comprehension o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whose reality and nearness will ever augment as you progress Paradiseward.

6:8.8 (80.5) The Eternal Son is a grand and glorious personality. Although it is beyond the powers of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to grasp the actuality of the personality of such an infinite being, doubt not, he is a person. I know whereof I speak. Times almost without number I have stood in the divine presence of this Eternal Son and then journeyed forth in the universe to execute his gracious bidding.

6:8.9 (80.6) [Indited by a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formulate this statement depicting the Eternal Son of Paradise.]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 006

유랜시아 책

008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섹션

소개

1. 영_인력 회로
2. 영원한 아들의 경영
3. 영원한 아들과 개인의 관계
4. 완비시키는 신성한 계획
5. 증여되는 영
6.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
7. 아버지를 최상으로 계시함

PAPER 7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pirit-Gravity Circuit
2.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3.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Individual
4. The Divine Perfection Plans
5. The Spirit of Bestowal
6. The Paradise Sons of God
7.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Father

소개

다양한 생명체 집단과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진화하는 우주의 현상 속에 점진적으로 펼쳐질 때, **원본{原本}** **아들**은 그 목적의 영적인 면을 집행하는 데 늘 관여한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지만, **낙원 아들**은 틀림없이 납득한다.

아들은, 자신의 동격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하위{下位} **아들**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스스로 증여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같다. 그리고 **아들**은, 두 분의 공동 행정관인 **무한한 영**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증여하시는 **아버지**의 자아_분배 본성을 공유하신다.

제2 근원 및 중심은, 영 실체들을 유지하는 자로서, 모든 물질 사물을 매우 훌륭히 유지하는 **낙원 섬**의 영원한 평형추다. 따라서 **제1 근원 및 중심**은, 중앙 **섬**의 절묘한 원형{原型}들의 물질적 아름다움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인격의 영적 가치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INTRODUCTION

7:0.1 (81.1) THE Original Son is ever concer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spiritual aspects of the Father's eternal purpose as it progressively unfolds in the phenomena of the evolving universes with their manifold groups of living beings.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is eternal plan, but the Paradise Son undoubtedly does.

7:0.2 (81.2) The Son is like the Father in that he seeks to bestow everything possible of himself upon his co-ordinate Sons and upon their subordinate Sons. And the Son shares the Father's self-distributive nature in the unstinted bestowal of himself upon the Infinite Spirit, their conjoint executive.

7:0.3 (81.3) As the upholder of spirit realities,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is the eternal counterpoise of the Isle of Paradise, which so magnificently upholds all things material. Thus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orever revealed in the material beauty of the exquisite patterns of the central Isle and in the spiritual values of the supernal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영원한 아들은 영{靈} 실체 및 영적 존재들의 방대한 창조계를 실제로 유지하는 분이다. 영 세계는, **아들**의 습성, 즉 인격있는 행위이며, 영 본성의 비인격 실체들은 **절대자 아들**의 완전한 인격의 뜻과 목적에 항상 반응한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영 인격체의 행위에 대해 몸소 책임지지는 않는다. 인격있는 피조물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의지를 지닌 그런 존재의 행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에서 자연계가 **낙원**과 **신격**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정확히 드러내지는 못하듯이, 자유의지를 지닌 영 세계도 **영원한 아들**의 성품을 언제나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나 천사가 자유의지로 하는 행위가 어떤 특징을 갖든지 상관없이, **아들**의 영원한 장악은, 모든 영 실체에 대한 우주 인력을 계속해서 절대로 통제한다.

1. 영_인력 회로

하나님의 내재{內在}하심, 즉 그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심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은, 영적 범위에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창조물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영 인력{引力}, 곧 순전히 영적인 이 회로는, **낙원**에 있는 **제2 근원 및 중심** 인격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그는 참된 모든 영 가치에 대한 항상_현존하고 틀림없는 바로 그 영적 지배의 통제와 작동을 관장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주권을 행사한다. 글자 그대로 마치 자기 손바닥 안에 쥐듯이, 그는 모든 영적 실체와 영적 가치를 붙잡고 있다. 우주의 영적 인력에 대한 통제가 우주의 영적 주권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인력 통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작동하며, 따라서 영 에너지는 전달할 때 줄어들지 않는다. 영 인력은 시간 지연을 결코 겪지 않고, 또한 공간을 지나면서 감소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물질 창조의 질량은 순수한 영{靈} 동력 회로를 지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영 에너지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아들**의 절대성에 내재돼 있으며; **제3 근원 및 중심**의 반인력{反引力} 세력의 개입 때문이 아니다.

영 실체들은, 그 질적 가치, 즉 자신의 영 본성의 실제 등급에 따라서, 영적 인력 중심이 이끄는 능력에 반응한다. 조직된 물리적 물질{양{量}} 에너지가 물리적 인력에 민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 내용은(질{質})은 영 인력에 민감하다. 영적 가치와 영 세력들은 **실재한다**. 인격체의 관점에서 보면, 영이 창조의 핵심이며; 물질은 그림자처럼

7:0.4 (81.4) The Eternal Son is the actual upholder of the vast creation of spirit realities and spiritual beings. The spirit world is the habit, the personal conduct, of the Son, and the impersonal realities of spirit nature are always responsive to the will and purpose of the perfect personality of the Absolute Son.

7:0.5 (81.5) The Son is not, however,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all spirit personalities. The will of the personal creature is relatively free and hence determines the actions of such volitional beings. Therefore the freewill spirit world is not always truly 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even as nature on Urantia is not truly revelatory of the perfection and immutability of Paradise and Deity. But no matter what may characterize the freewill action of man or angel, the Son's eternal grasp of the universal gravity control of all spirit realities continues as absolute.

1. THE SPIRIT-GRAVITY CIRCUIT

7:1.1 (81.6) Everything taught concerning the immanence of God, his omnipresence, omnipotence, and omniscience, is equally true of the Son in the spiritual domains. The pure and universal spirit gravity of all creation, this exclusively spiritual circuit, leads directly back to the pers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on Paradise. He presides over the control and operation of that ever-present and unerring spiritual grasp of all true spirit values. Thus does the Eternal Son exercise absolute spiritual sovereignty. He literally holds all spirit realities and all spiritualized values, as it were, in the hollow of his hand. The control of universal spiritual gravity is universal spiritual sovereignty.

7:1.2 (82.1) This gravity control of spiritual things operates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therefore is spirit energy undiminished in transmission. Spirit gravity never suffers time delays, nor does it undergo space diminution. It does not de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square of the distance of its transmission; the circuits of pure spirit power are not retarded by the mass of the material creation. And this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by pure spirit energies is inherent in the absoluteness of the Son; it is not due to the interposition of the antigravity forc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7:1.3 (82.2) Spirit realities respond to the drawing power of the center of spiritual gravity in accordance with their qualitative value, their actual degree of spirit nature. Spirit substance (quality) is just as responsive to spirit gravity as the organized energy of physical matter (quantity) is responsive to physical gravity. Spiritual values and spirit

눈에 보이는 물체다.

영 인력의 반응과 변동은 늘, 영적 가치의 내용, 즉 한 개인 또는 한 세계의 영적 상태의 질{質}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런 끌어당기는 능력은, 모든 우주 상황 또는 행성 조건의 상호_영 가치 및 내부_영 가치에 즉시 반응한다. 영적 실체가 우주들에서 실제화 할 때마다, 이런 변화는 즉시 순간적으로 영 인력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새로운 영은, 실제로 **제2 근원 및 중심**의 한 부분이며; 필사적 사람은, 자신이 영성화 된 존재가 되는 만큼 확실하게, 영 인력의 중심이자 근원인 영적 **아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아들의 끌어당기는 영적 능력은, 아들신분에 속하는 많은 **낙원** 계층에 약한 정도로 내재돼 있다. 이는 절대 영_인력 회로 내부에, 비교적 작은 창조 단위들에서 작용하는 지역 체계들의 영적 흡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 인력이 그렇게 절대{絶對} 이하에 집중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주** 인격체들의 신성{神性}의 일부분이며, **지존하신 분**의 생겨나는 체험적 전면통제와 상호 관련된다.

영_인력의 끌어당김과 그에 대한 반응은, 우주 전체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 및 개인이 속한 집단들 사이에서도 작동한다. 세계, 인종, 국가, 또는 개인들로 이뤄진 어느 신앙 집단이든지, 영적 인격체와 영화된 인격체들 가운데에는 영적 응집력이 있다. 영적으로 비슷한 기호나 열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 본성의 명백한 매력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낙원의 물질 인력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들의 영적 인력도 절대적이다. 죄와 반역이 지방 우주 회로들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인간거주 세계들이 속한 너희 체계에, 그리고 **유란시아**에, **루시퍼** 반역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로 인한 너희 행성의 영적 격리가, **영원한 아들**의 편제하는 영 또는 연합된 영_인력 회로의 현존과 기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지 못한다.

광우주의 영_인력 회로의 모든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편제하는 영의 모든 행위와 반응을 알아보며, 이것들이 신뢰할 만 함을 발견한다. 사람이 유한한 물리적 인력의 작용을 계산하려고 시도하듯이, 잘 알려진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영적 인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영 사물과 존재 그리고 인격자들에 대해 **아들**의 영은 한결같이 반응하며, 이 반응은 그런 모든 영적 가치의 실제성 정도와 (곧 실체의 질적인 정도와) 항상 일치한다.

forces are *real*.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ity, spirit is the soul of creation; matter is the shadowy physical body.

7:1.4 (82:3) The reactions and fluctuations of spirit gravity are ever true to the content of spiritual values, the qualitative spiritual status of an individual or a world. This drawing power is instantly responsive to the inter- and intraspirit values of any universe situation or planetary condition. Every time a spiritual reality actualizes in the universes, this change necessitates the immediate and instantaneous readjustment of spirit gravity. Such a new spirit is actually a part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nd just as certainly as mortal man becomes a spiritized being, he will attain the spiritual Son, the center and source of spirit gravity.

7:1.5 (82:4) The Son's spiritual drawing power is inherent to a lesser degree in many Paradise orders of sonship. For there do exist within the absolute spirit-gravity circuit those local systems of spiritual attraction that function in the lesser units of creation. Such subabsolute focalizations of spirit gravity are a part of the divinity of th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and are correlated with the emerging experiential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7:1.6 (82:5) Spirit-gravity pull and response thereto operate not only on the universe as a whole but also even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There is a spiritual cohesiveness among the spiritual and spiritized personalities of any world, race, nation, or believing group of individuals. There is a direct attractiveness of a spirit nature between spiritually minded persons of like tastes and longings. The term *kindred spirits* is not wholly a figure of speech.

7:1.7 (82:6) Like the material gravity of Paradise,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is absolute. Sin and rebellion may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local universe circuits, but nothing can suspend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Lucifer rebellion produced many changes in your system of inhabited worlds and on Urantia, but we do not observe that the resultant spiritual quarantine of your planet in the least affected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either the omnipresent spirit of the Eternal Son or the associated spirit-gravity circuit.

7:1.8 (82:7) All reactions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grand universe are predictable. We recognize all actions and reactions of the omnipresent spirit of the Eternal Son and find them to be dependable. In accordance with well-known laws, we can and do measure spiritual gravity just as man attempts to compute the workings of finite physical gravity. There is an unvarying response of the Son's spirit to all spirit things, beings, and persons, and this response is alway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actuality (the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의 바로 이런 신뢰할만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뿐 아니라, 그 반응을 그다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현상은 아마 떠오르는 영적 잠재력 영역에서 **신격 절대자**의 협조 행위를 암시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이 웅대하고 무한한 인격의 영향임을 알지만, 추측되는 **신격 절대자**의 실행과 연합된 반응을, 인격적인 것으로는 전혀 여기지 않는다.

인격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격자들이 보건대, **영원한 아들**과 **신격 절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영원한 아들**이 실제 영적 가치 영역을 지배하며, 한편 **신격 절대자**는 잠재적{潛在的} 영 가치라는 방대한 분야에 충만하다. 영 본성의 모든 실제 가치는, **영원한 아들**의 인력 지배에서 발판을 마련하지만, 잠재적 가치의 경우에는 **신격 절대자**의 현존 안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은 **신격 절대자**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며; 진화하는 영은 **지존자**와 **궁극자**의 체험적이고 미완성인 지배 속에서 상호_관련성을 발견하며; 영은 결국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의 절대 지배 속에서 최종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체험적 영의 순환인 듯이 보이지만, 실존적 영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무한성에 내재해 있다.

2. 영원한 아들의 경영

원본 아들의 현존과 친히 행하는 활동은 **낙원**에서 심오한데, 영적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하보나**를 거쳐 일곱 연방우주 영역 속으로 밖을 향해 지나갈수록, **영원한 아들**이 친히 행하는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하보나** 이후의 우주들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현존이 **낙원 아들**들 안에서 인격화되는데, **지존자**와 **궁극자**의 체험적 실체들에 따라서 제한되고, **신격 절대자**의 무한한 영 잠재력과 조화를 이룬다.

중앙우주에서 **원본 아들**이 친히 행하는 활동은, 영원한 창조의 절묘한 영적 조화에서 식별될 수 있다. **하보나**는 너무나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이 원형{原型} 우주의 영적 지위와 에너지 상태는 완전하고 영구히 균형 잡혀 있다.

연방우주들에서는, **아들**이 직접 현존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며; 그는 인격을 초월하는 대표단들이 창조계에 유지시킬 뿐이다. **아들**이 이렇게 영

qualitative degree of reality) of all such spiritual values.

7:1.9 (83.1) But alongside this very dependable and predictable function of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re are encountered phenomena which are not so predictable in their reactions. Such phenomena probably indicate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Deity Absolute in the realms of emerging spiritual potentials. We know that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is the influence of a majestic and infinite personality, but we hardly regard the reactions associated with the conjectured performances of the Deity Absolute as personal.

7:1.10 (83.2) Viewed from the personality standpoint and by persons, the Eternal Son and the Deity Absolute appear to be related in the following way: The Eternal Son dominates the realm of actual spiritual values, whereas the Deity Absolute seems to pervade the vast domain of potential spirit values. All actual value of spirit nature finds lodgment in the gravity grasp of the Eternal Son but, if potential, then apparently in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7:1.11 (83.3) Spirit seems to emerge from the potentials of the Deity Absolute; evolving spirit finds correlation in the experiential and incomplete grasp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spirit eventually finds final destiny in the absolute grasp of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is appears to be the cycle of experiential spirit, but existential spirit is inherent in the infinity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2.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7:2.1 (83.4) On Paradise the presence and personal activity of the Original Son is profound, absolute in the spiritual sense. As we pass outward from Paradise through Havona and into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e detect less and less of the personal activity of the Eternal Son. In the post-Havona universes the presence of the Eternal Son is personalized in the Paradise Sons, conditioned by the experiential realitie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and co-ordinated with the unlimited spirit potential of the Deity Absolute.

7:2.2 (83.5) In the central universe the personal activity of the Original Son is discernible in the exquisite spiritual harmony of the eternal creation. Havona is so marvelously perfect that the spiritual status and the energy states of this pattern universe are in perfect and perpetual balance.

7:2.3 (83.6) In the superuniverses the Son is not personally present or resident; in these creations he maintains only a superpersonal representation.

으로 현시된 이들은 인격적이지 않으며;**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초월**인격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하며;이들은 유한한 존재이며;유한절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연방우주들에서 **영원한 아들**의 경영은, 독점적으로 영적이고 초인격적이므로, 피조 인격체들은 이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태고 항존자들**의 영토에 속하는 모든 구역의 활동 국면 마다, **아들**의 개인적 영향력인, 전체에 스며드는 영적 충동을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들**들의 인격 속에 직접 현존하심을 목격한다. 이때 무한한 **아들**은, 웅대한 단체를 이루는 동격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동한다.

3. 영원한 아들과 개인의 관계

지방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은, **영원한 아들**을 직접 대표하는 **창조주 아들**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이 연방우주 훈련체제로 비로소 상승하게 되면,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감어린 영의 숭고한 현존을 점점 더 감지하게 되며, 이런 영적 활력의 사역을 접함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보나**에서는, 전체에 스며드는 **원본 아들**의 영의 사랑스런 품을, 상승자들이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전체 필사자 상승 가운데 어떤 단계에서도, **영원한 아들**의 영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의 정신이나 혼 안에 거주하지 않으나, 그의 자비는, 시간세계에서 진보하는 자녀들의 복지 및 영적 보호와 항상 관계하고, 늘 그 곁에 있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_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존하는 인간 혼이 **낙원**으로 상승하는 데 내재된 비결이다. 모든 진정한 영 가치, 그리고 모든 진실한 영성화 된 개인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의 어긋없는 지배 속에 붙잡혀 있다. 예를 들면, 필사 정신은 물질 체제로서 생애를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물질 인력에 덜 지배되고, 이 전체 체험 동안 영 인력의 안쪽으로 당기는 충동에 더욱 일치해 반응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완벽하게 된 영 실존으로서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영_인력 회로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혼을 **낙원** 쪽으로 끌어당긴다.

영_인력 회로는, 믿는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나는 순수한 기도를, 인간 의식 수준으로부터 **신격**의 실제 의식 수준으로 전달하는 기본 경로다. 너의 간구 속에 있는 참된 영적 가치를 나타내는 그것은, 영 인력을 가진 우주 회로에 포착될 것이

These spirit manifestations of the Son are not personal; they are not in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We know of no better term to use than to designate them *superpersonalities*; and they are finite beings; they are neither absonite nor absolute.

7:24 (83.7)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in the superuniverses, being exclusively spiritual and superpersonal, is not discernible by creature personalities. Nonetheless, the all-pervading spiritual urge of the Son's personal influence is encountered in every phase of the activities of all sectors of the domain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local universes, however, we observe the Eternal Son personally present in the persons of the Paradise Sons. Here the infinite Son spiritually and creatively functions in the persons of the majestic corps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3.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INDIVIDUAL

7:31 (84.1) In the local universe ascent the mortals of time look to the Creator Son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Eternal Son. But when they begin the ascent of the superuniverse training regime, the pilgrims of time increasingly detect the supernal presence of the inspiring spirit of the Eternal Son, and they are able to profit by the intake of this ministry of spiritual energization. In Havona the ascenders become still more conscious of the loving embrace of the all-pervading spirit of the Original Son. At no stage of the entire mortal ascension does the spirit of the Eternal Son indwell the mind or soul of the pilgrim of time, but his beneficence is ever near and always concerned with the welfare and spiritual security of the advancing children of time.

7:32 (84.2) The spiritual-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constitutes the inherent secret of the Paradise ascension of surviving human souls. All genuine spirit values and all bona fide spiritualized individuals are held within the unfailing grasp of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mortal mind, for example, initiates its career as a material mechanism and is eventually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as a well-nigh perfected spirit existence, becoming progressively less subject to material gravity and correspondingly more responsive to the inward pulling urge of spirit gravity during this entire experience. The spirit-gravity circuit literally pulls the soul of man Paradiseward.

7:33 (84.3) The spirit-gravity circuit is the basic channel for transmitting the genuine prayers of the believing human heart from the level of human consciousness to the actual consciousness of Deity. That which represents true spiritual value in

고, 관계된 모든 신성한 인격체에게 즉시 그리고 동시에 전달될 것이다. 친히 활동하는 분야에 속하는 일에, 각자 전념할 것이다. 따라서, 너의 실질 종교 체험을 하는 가운데 간청할 때, 너의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을 마음에 그리든지, 또는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영원한 아들**을 마음에 그리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_인력 회로의 특이한 작동은, 아마 물질 인간 몸 속에 있는 신경 회로 기능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은 신경 경로를 통해 안쪽으로 이동하며; 더러는 하부 자율 척추 중심에 붙들리거나 반응을 겪으며; 또 더러는 하부 뇌의 덜_자율적이지만 습관적으로_훈련된 중심으로 이동하고, 한편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입력 신호는, 하위 중심을 순간적으로 지나쳐서 곧바로 인간 의식의 최고 수준에 등록된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뛰어난 기법은 얼마나 더 완전한지! 최상의 영적 가치가 내포된 어떤 것이든지 너의 의식 속에 생기면, 일단 네가 그것을 표현하면, 모든 창조계의 **절대 영 인격체**에게 그것이 직접 번개처럼 전해지는 것을 막을 힘이 우주에는 전혀 없다.

반대로, 네가 간청한 것들이 순전히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자기_중심적이라면, 그런 무가치한 기도가 **영원한 아들**의 영 회로 안에 자리를 갖게 하는 어떤 계획도 없다. 어떤 간구 내용이든지, “영으로 쓴” 것이 아니면 우주의 영적 회로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순전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요청은 없어질 것이며; 참된 영 가치 회로에서 상승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같다.

필사자의 간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동기가 되는 생각, 즉 영적 내용물이다.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4. 완비시키는 신성한 계획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진보 계획, 즉: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창조하고, 진화시키고, 상승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우주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實行}에서 **아버지**와 영구히 교섭한다. 그리고 신성하게 충실한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 세계에서 물질 존재의 진보를 위해 하나 되어, 영원성의 완성을 향한 이 거대한 달성 계획을 조성하고 실행하신다. 공간에서 상승한 혼의 영적 향상을 위한 이 기획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창작품이며, 두 분은 **무한한 영**의 협동을 받아서, 연합하여 신성한 목적의 실행

your petitions will be seized by the universal circuit of spirit gravity and will pass immediately and simultaneously to all divine personalities concerned. Each will occupy himself with that which belongs to his personal province. Therefore, in your practical religious experience, it is immaterial whether, in addressing your supplications, you visualize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or the Eternal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7:3.4 (84.4) The discriminative operation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might possibly be compared to the functions of the neural circuits in the material human body: Sensations travel inward over the neural paths; some are detained and responded to by the lower automatic spinal centers; others pass on to the less automatic but habit-trained centers of the lower brain, while the most important and vital incoming messages flash by these subordinate centers and are immediately registered in the highest levels of human consciousness.

7:3.5 (84.5) But how much more perfect is the superb technique of the spiritual world! If anything originates in your consciousness that is fraught with supreme spiritual value, when once you give it expression, no power in the universe can prevent its flashing directly to the Absolute Spirit Personality of all creation.

7:3.6 (84.6) Conversely, if your supplications are purely material and wholly self-centered, there exists no plan whereby such unworthy prayers can find lodgment in the spirit circuit of the Eternal Son. The content of any petition which is not “spirit indited” can find no place in the universal spiritual circuit; such purely selfish and material requests fall dead; they do not ascend in the circuits of true spirit values. Such words are as “sounding brass and a tinkling cymbal.”

7:3.7 (85.1) It is the motivating thought, the spiritual content, that validates the mortal supplication. Words are valueless.

4. THE DIVINE PERFECTION PLANS

7:4.1 (85.2) The Eternal Son is in everlasting liaison with the Father in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the *divine plan of progress*: the universal plan for the creation, evolution, ascension, and perfection of will creatures. And, in divine faithfulness, the Son is the eternal equal of the Father.

7:4.2 (85.3) The Father and his Son are as one in the formulation and prosecution of this gigantic attainment plan for advancing the material beings of time to the perfection of eternity. This project for the spiritual elevation of the ascendant souls of space is a joint cre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행에 임하신다.

완비(完備)에 도달하게 하는 이 신성한 계획은, 놀라운 정도로 상호관련돼 있음에도 우주 모험의 독특한 세 가지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1. **점진적 달성 계획.** 이것은 진화 상승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계획인데,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피조물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영원한 아들**이 공감했을 때, **아들**이 제한 없이 받아들인 계획표다. 시간 속에서 피조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준비에는, **아버지**께서 **사고 조율사**를 증여하는 것과, 인격이라는 특권을 물질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증여 계획.** 그 다음의 우주 계획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동격 **아들**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이 제안한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화 창조계에 증여하는 것으로 이뤄지는데, 거기서 인격화하고 사실화하여, 즉 육신화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가 모든 우주 피조물에게 실재하도록 만든다. 증여 계획에 내재된 대로,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임시 역할로, **낙원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피조물의 의지가 영적 위험 속에 처해왔던 것을 복구하는 존재로서 활동한다. 달성 계획의 작동에 지연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만약에 반역이 이 사업을 우연히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에 대한 비상 대책이 즉시 활성화된다. **낙원 아들**들은 반역이 일어난 바로 그 영역 속으로 가서, 거기서 그 구체들의 영적 상태를 복구하는 구출자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주권을 획득하는 체험적 증여 생애와 관련하여, 한 동격 **창조주 아들**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런 영웅적인 봉사를 수행했다.

3. **자비(慈悲)를 베푸는 계획.** 달성 계획과 증여 계획이 작성되고 선포되고 나서, **무한한 영**은 홀로 그리고 스스로, 자비를 베푸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가동했다. 이것은 달성 이행업무와 증여 이행업무 양쪽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매우 기본적인 봉사이며, **제3 근원 및 중심**의 영적 인격체들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기질을 갖는데, 이 사역은 **신격의 제3 인격자**의 본성 가운데 일부분과 매우 비슷하다. 창조의 경우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행정관(行政官)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용한다.

영원한 아들은, 피조물 상승에 대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개인 수탁인(受託人), 즉 신성한 관리인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우주의 명령을 공표한 후에, **아버지**가 **영원한 아**

and they ar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finite Spirit, engaged in associative execution of their divine purpose.

7:4.3 (85.4) This divine plan of perfection attainment embraces three unique, though marvelously correlated, enterprises of universal adventure:

7:4.4 (85.5) 1. *The Plan of Progressive Attainment.* This is the Universal Father's plan of evolutionary ascension, a program unreservedly accepted by the Eternal Son when he concurred in the Father's proposal, "Let us make mortal creatures in our own image." This provision for upstepping the creatures of time involves the Father's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endowing of material creatures with the prerogatives of personality.

7:4.5 (85.6) 2. *The Bestowal Plan.* The next universal plan is the great Father-revelation enterprise of the Eternal Son and his co-ordinate Sons. This is the proposal of the Eternal Son and consists of his bestowal of the Sons of God upon the evolutionary creations, there to personalize and factualize, to incarnate and make real,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mercy of the Son to the creatures of all universes. Inherent in the bestowal plan, and as a provisional feature of this ministration of love, the Paradise Sons act as rehabilitators of that which misguided creature will has placed in spiritual jeopardy. Whenever and wherever there occurs a delay in the functioning of the attainment plan, if rebellion, perchance, should mar or complicate this enterprise, then do the emergency provisions of the bestowal plan become active forthwith. The Paradise Sons stand pledged and ready to function as retrievers, to go into the very realms of rebellion and there restore the spiritual status of the spheres. And such a heroic service a co-ordinate Creator Son did perform on Urantia in connection with his experiential bestowal career of sovereignty acquirement.

7:4.6 (85.7) 3. *The Plan of Mercy Ministry.* When the attainment plan and the bestowal plan had been formulated and proclaimed, alone and of himself, the Infinite Spirit projected and put in operation the tremendous and universal enterprise of mercy ministry. This is the service so essential to the practical and effective operation of both the attainment and the bestowal undertakings, and the spiritual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ll partake of the spirit of mercy ministry which is so much a part of the nature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Not only in creation but also in administration,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truly and literally as the conjoint executive of the Father and the Son.

7:4.7 (86.1)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trustee, the divine custodian, of the Father's universal plan of creature ascension. Having promulgated the universal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들에게 이 거대한 이행업무의 집행을 맡겼으며;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함께, 이 숭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격**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및 보살핌에--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와 재건에도-- 효과적으로 협동한다.

5. 증여되는 영

“**하보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굉장한 권면을 전체 창조계에 퍼뜨리면서,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조건 합류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초청 명령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방대한 가족인, 협조하고 연합하는 **아들**들의 생존 계획과 증여 기획 전체에, 동기(動機)를 부여해 왔다. 바로 이렇게 증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진화 피조물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왔다.

영원한 아들은, 인격이전 **사고 조율사**라는 성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인간과 직접 접촉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아들**은 자신이 사람 현존으로서, 그리고 때때로 사람 자체가 되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일련(一連)의 단계적 낮아짐으로, 창조된 인격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영원한 아들의 순전히 인격적인 본성은 단편화(斷片化) 될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영향력으로서 또는 어떤 인격자로서 보살피며, 결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 조율사가 체험에 참여하는 그 의미에서는 피조물 체험의 일부분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영원한 아들**은 증여라는 기법으로 이 한계를 보충한다. 단편화 된 실재의 체험이 **만유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낙원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다.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뜻, 즉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로서 필사적 사람에게 오지 않지만, **영원한 아들**은, 그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신성한 인격이, **나사렛**의 **예수**의 인간 본성 안에 육신화 됐을 때,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적 사람으로 왔었다. 창조된 인격체의 체험을 공유(共有)하기 위해,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은 그런 피조물의 바로 그 본성을 취하고, 실제 피조물로서 그들의 신성한 인격을 육신화해야 한다. 육신화는 **소나링톤**의 비밀이며, 인격 절대성이라는, 만물을 둘러싸는 다른 족쇄로부터 **아들**이 벗어나는 기법이다.

영원한 아들은 아주 오래 전에,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순례자들을 포함해서 **하보나**의 모든 거

perfect,” the Father intrusted the execution of this tremendous undertaking to the Eternal Son; and the Eternal Son shares the fostering of this supernal enterprise with his divine co-ordinate, the Infinite Spirit. Thus do the Deities effectively co-operate in the work of creation, control, evolution, revelation, and ministration — and if required, i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5. THE SPIRIT OF BESTOWAL

7:5.1 (86.2) The Eternal Son without reservation joined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broadcasting that tremendous injunction to all creation: “Be you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avona is perfect.” And ever since, that invitation-command has motivated all the survival plans and the bestowal projects of the Eternal Son and his vast family of co-ordinate and associated Sons. And in these very bestowals the Sons of God have become to all evolutionary creature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7:5.2 (86.3) The Eternal Son cannot contact directly with human beings as does the Father through the gift of the prepersonal Thought Adjusters, but the Eternal Son does draw near to created personalities by a series of downstepping gradations of divine sonship until he is enabled to stand in man's presence and, at times, as man himself.

7:5.3 (86.4) The purely personal nature of the Eternal Son is incapable of fragmentation. The Eternal Son ministers as a spiritual influence or as a person, never otherwise. The Son finds it impossible to become a part of creature experience in the sense that the Father-Adjuster participates therein, but the Eternal Son compensates this limitation by the technique of bestowal. What the experience of fragmented entities means to the Universal Father, the incarnation experiences of the Paradise Sons mean to the Eternal Son.

7:5.4 (86.5) The Eternal Son comes not to mortal man as the divine will, the Thought Adjuster indwelling the human mind, but the Eternal Son did come to mortal man on Urantia when the divine *personality* of his Son, Michael of Nebadon, incarnated in the human nature of Jesus of Nazareth. To share the experience of created personalities, the Paradise Sons of God must assume the very natures of such creatures and incarnate their divine personalities as the actual creatures themselves. Incarnation, the secret of Sonarington, is the technique of the Son's escape from the otherwise all-encompassing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7:5.5 (86.6) Long, long ago the Eternal Son bestowed himself upon each of the circuits of the

주민과 순례자의 계몽 및 증진을 위해, 중앙 창조 회로들 각각에 자신을 증여했었다. 일곱 번의 이 증여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그는 상승자 또는 **하보나** 시민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으로서 존재했다. 그의 체험은 독특했으며; 그 체험은 어떤 인간 또는 다른 순례자와 **함께** 또는 그런 존재로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격자를 초월하는 의미와 관련된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부 **하보나** 회로와 **낙원** 가장자리 사이에 개재하는 수면(睡眠) 상태를 거치지도 않았다. 인격의 의식이 중지되는 것은 절대 존재인 그에게 불가능한데, 모든 계통의 영적 인력이 그의 안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증여 시절 동안에, 영적 광명의 중앙 **낙원** 거점은 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우주의 영 인력에 대한 **아들**의 지배는 줄어들지 않았다.

영원한 아들이 **하보나**에서 했던 증여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초월적이었다. 그가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전체 **하보나** 체험을 들렀지만, 우리는 그가 그의 실존적 본성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체험 수용력을 늘렸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낙원 아들**들의 증여 신비에 속할 것이다. 아무튼 **영원한 아들**이 이런 여러 증여 사명에서 무엇을 획득했든지, 우리는 그가 그 후로 내내 존속시켜왔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신격의 제2 인격자의 증여들을 납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아들**이 **하보나**에 증여된 것을 납득하는데, 그는 중앙우주의 회로들을 정확하게 통과하여 지나갔고, **신격** 달성을 위한 상승자의 준비를 구성하는 그 체험을 실제로 공유했다. 이 분이 최초_탄생 **창조주 아들**인 원본 **미가엘**이었으며, 그는 모든 필사자 중에서 **하보나**에 처음 도달한 **그랜한다**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각 궤도의 단계를 직접 여행하면서, 이 회로에서 저 회로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생애 체험을 거쳐서 지나갔다.

이 원본 **미가엘**이 달리 무엇을 드러냈든지, 그는 **어머니이신 원본 아들**의 초월적 증여를 **하보나**의 피조물에게 실제화 시켰다. 점진적으로 **하보나**에 도달하는 일곱 회로에서 시_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낙원**의 권세와 영화로움을 일곱 번이나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보나** 회로들을 순회하는 모험에서 수고하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마다, 영구히 기운을 내고 힘을 얻는데, 이는 그 증여가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역에서 증여 사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에게 모범적인 영감(靈感)을 준다. 동격 **창조주 아들**들 및 동역하는 **집정관 아들**들은,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계시되지 않은 다른 계층들과 함께, 피조 생명에 속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그리고 바로 그 피조물로서,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 이 훌륭한 자발적

central creation for the enlightenment and advancement of all the inhabitants and pilgrims of Havona, including the ascending pilgrims of time. On none of these seven bestowals did he function as either an ascender or a Havoner. He existed as himself. His experience was unique; it was not *with* or as a human or other pilgrim but in some way associative in the superpersonal sense.

7:5.6 (86.7) Neither did he pass through the rest that intervenes between the inner Havona circuit and the shores of Paradise. It is not possible for him, an absolute being, to suspend consciousness of personality, for in him center all lines of spiritual gravity. And during the times of these bestowals the central Paradise lodgment of spiritual luminosity was undimmed, and the Son's grasp of universal spirit gravity was undiminished.

7:5.7 (87.1) The bestowals of the Eternal Son in Havona are not within the scope of human imagination; they were transcendental. He added to the experience of all Havona then and subsequently, but we do not know whether he added to the supposed experiential capacity of his existential nature. That would fall within the bestowal mystery of the Paradise Sons. We do, however, believe that whatever the Eternal Son acquired on these bestowal missions, he has ever since retained; but we do not know what it is.

7:5.8 (87.2) Whatever our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bestowals of the Second Person of Deity, we do comprehend the Havona bestowal of a Son of the Eternal Son, who literally passed through the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actually shared those experiences which constitute an ascender's preparation for Deity attainment. This was the original Michael, the first-born Creator Son, and he passed through the life experiences of the ascending pilgrims from circuit to circuit, personally journeying a stage of each circle with them in the days of Grandfanda, the first of all mortals to attain Havona.

7:5.9 (87.3) Whatever else this original Michael revealed, he made the transcendent bestowal of the Original Mother Son real to the creatures of Havona. So real, that forevermore each pilgrim of time who labors in the adventure of making the Havona circuits is cheered and strengthened by the certain knowledge that the Eternal Son of God seven times abdicated the power and glory of Paradise to participate in the experiences of the time-space pilgrims on the seven circuits of progressive Havona attainment.

7:5.10 (87.4) The Eternal Son is the exemplary inspiration for all the Sons of God in their ministrations of bestowal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co-ordinate Creator Sons and the associate Magisterial Sons, together with other unrevealed orders of sonship, all partake of this wonderful willingness to bestow themselves

행위에 모두 참여한다. 따라서,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간에 있는 그 세계들에 증여될 때, 이 증여에서, 이 증여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증여함으로써, **영원한 아들**이 영으로, 그리고 근원적 사실뿐 아니라 본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주에서 의지를 지닌 지성적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해 온 것이 진실임이 드러난다.

모든 속성에서는 아닐지라도, 영과 본성에서, 각 **낙원 아들**은 **원본 아들**을 신성하게 묘사하는 완전한 초상화다. 누구든지 **낙원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이미 본 것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6.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렸음을 모르는 것이, **유란시아**에서 일어나는 큰 혼돈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이 신성한 인격체들의 비밀회의에 대한 기록,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선포했고, 모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지속된다. 구역 표준시간으로 매 1,000년마다,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주기적 비밀회의를 위해 함께 모인다.

자비와 봉사를 베푸는 흠모할만한 속성의 인격적 근원은 **영원한 아들**인데, 이 속성은,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계 도처에서 활동함에 따라, 그들 계층 전체의 특징을 풍성하게 나타낸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무한한 속성은 아니라도, 모든 신성한 본성을 어김없이 **낙원 아들**들에게 전달하며, 이들은 온갖 우주에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영원한 **섬**으로부터 나아간다.

영원한 원본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최초로” 완성되고 무한한 사고를 지닌 후손_인격자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새롭고, 원래적이고, 동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인격적 사고를 함께 입안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창조적 관념은 새로운 원본 **창조주 아들**의 존재와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격화된다. 영본성, 신성한 지혜, 그리고 동격 창조 능력 면에서, 이 **창조주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 및 **아들 하나님**과 잠재적으로 동등하다.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으로부터 시간세계의 우주들 속으로 들어가고, **제3 근원 및 중심**의 통제와 창조적인 대행기관들의 협동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지방우주 조직을 완성한다. 이 **아들**들은, 물질과 정신과 영을 중앙에서 보편적으로 통제하는 데 배속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제1 근원 및 중심**과 그의 동격 **절대자**들의 선재{先在}, 우선권, 및 탁월성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 행위에 제한받는다. 이 **아들**들은 자신이 실존시키는 것들만 경영할 수 있다. 절대적 경영은 실존의 우선권에 내재하며, 영원한 현

upon the varied orders of creature life and as the creatures themselves. Therefore, in spirit and because of kinship of nature as well as fact of origin, it becomes true that in the bestowal of each Son of God upon the worlds of space, in and through and by these bestowals, the Eternal Son has bestowed himself upon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7:5.11 (87.5) In spirit and nature, if not in all attributes, each Paradise Son is a divinely perfect portraiture of the Original Son. It is literally true, whosoever has seen a Paradise Son has seen the Eternal Son of God.

6. THE PARADISE SONS OF GOD

7:6.1 (87.6) The lack of a knowledge of the multiple Sons of God is a source of great confusion on Urantia. And this ignorance persists in the face of such statements as the record of a conclave of these divine personalities: “When the Sons of God proclaimed joy, and all of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Every millennium of sector standard time the various orders of the divine Sons go forth for their periodic conclaves.

7:6.2 (87.7)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source of the adorable attributes of mercy and service which so abundantly characterize all order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as they function throughout creation. All the divine nature, if not all the infinity of attributes, the Eternal Son unfailingly transmits to the Paradise Sons who go out from the eternal Isle to reveal his divine character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7:6.3 (88.1)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is the offspring-person of the “first” completed and infinit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Every tim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jointly project a new, original, identical, unique, and absolute personal thought, that very instant this creative idea is perfectly and finally personalized in the being and personality of a new and original *Creator Son*. In spirit nature, divine wisdom, and co-ordinate creative power, these Creator Sons are potentially equal with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7:6.4 (88.2) The Creator Sons go out from Paradise into the universes of time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ntrolling and creative agenc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complete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of progressive evolution. These Sons are not attached to, nor are they concerned with, the central and universal controls of matter, mind, and spirit. Hence are they limited in their creative acts by the pre-existence, priority, and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his co-ordinate Absolutes. These Sons are able to administer only that which they

존에서 분리될 수 없다. **아버지**는 우주들에서 여전히 근본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주 아들**들을 인격화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아들**과 **영**은 **집정관 아들**들을 인격화한다. 이들은 피조물로 육신화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재판관으로서 봉사하는 권한을 얻은 **아들**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다재다능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서도 결합하는데, 이 **아들**들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한 모든 인격체에 대한 탁월한 선생으로서 광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낙원** 아들신분을 지닌 수많은 다른 계층이 있다.

어머니이신 원본 아들과 전체 창조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낙원 아들**들의 이 무리들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대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기능은 영적 유사성의 특성에 내재돼 있고, 이 관계가 거의_절대적인 영적 관계의 굴레로 그들을 묶어둔다. 아들신분 사이의 이 회로는, 영 인력의 우주 회로와는 전혀 다른데, 영 인력 역시 **제2 근원 및 중심**의 인격자에 중심을 둔다. **낙원 신격**들의 인격자 안에서 기원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는,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이고 변함없는 대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즉각적이며;그것은 때로 공간에 제한을 받음에도 시간과는 무관하다.

영원한 아들은, **낙원** 아들신분에 속하는 모든 계층의 신분, 사고(思考), 및 다양한 활동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항상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성에 속하는 1차 중앙 창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 속에 실존하고, 동격 **창조주 아들**들의 2차 시간 창조계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에 관해서, 항상 완전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7. 아버지를 최상으로 계시함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과 인격을,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에 관한 정보는, 분명히 **영원한 아들** 및 그의 **낙원 아들**들로부터 도래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영적 자격조건 없이 **아버지**와 하나시다. 두 분은 신성한 인격에서 대등하며;영적 본성에서 동등하며;신성에서 일치하신다.

bring into existence. Absolute administration is inherent in priority of existence and is inseparable from eternity of presence. The Father remains primal in the universes.

7:6.5 (88.3) Much as the Creator Sons are personalized by the Father and the Son, so are the *Magisterial Sons* personalized by the Son and the Spirit. These are the Sons who, in the experiences of creature incarnation, earn the right to serve as the judges of survival in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7:6.6 (88.4) The Father, Son, and Spirit also unite to personalize the versatile *Trinity Teacher Sons*, who range the grand universe as the supernal teachers of all personalities, human and divine. And there are numerous other orders of Paradise sonship that have not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Urantia mortals.

7:6.7 (88.5) Between the Original Mother Son and these hosts of Paradise Sons scattered throughout all creation, there is a direct and exclusive channel of communication, a channel whose function is inherent in the quality of spiritual kinship which unites them in bonds of near-absolute spiritual association. This intership circui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universal circuit of spirit gravity, which also centers in the pers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ll Sons of God who take origin in the persons of the Paradise Deities are in direct and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Eternal Mother Son. And such communication is instantaneous; it is independent of time though sometimes conditioned by space.

7:6.8 (88.6) The Eternal Son not only has at all times perfect knowledge concerning the status, thoughts, and manifold activities of all orders of Paradise sonship, but he also has perfection of knowledge at all times regarding everything of spiritual value which exists in the hearts of all creatures in the primary central creation of eternity and in the secondary time creations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7.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FATHER

7:7.1 (88.7) The Eternal Son is a complete, exclusive, universal, and final revelation of the spirit and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ll knowledge of,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Father must come from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The Eternal Son is from eternity and is wholly and without spiritual qualification one with the Father. In divine personality they are co-ordinate; in spiritual nature they are equal; in divinity they are identical.

신성한 **아버지**가 무한히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본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지만, 바로 그 성품과 인격은, 피조 존재들에게 계시되기 위해, 인격없고 비영적(非靈的)인 부분을 벗겨냄으로써 확장된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인격체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아버지 인격의 영 특성들 전체는, **영원한 아들**의 절대 인격 안에 영적으로 현존한다.

시초의 **아들** 및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적 및 인격적 본성에 대한 보편적 계시를 전체 창조에 제시하기에 착수한다. 중앙우주, 연방우주들, 지방우주들, 또는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는 **낙원 아들**이다. **만유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피조물의 길을,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드러낸다. 그리고 높은 기원을 갖는 우리조차, **영원한 아들** 안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 및 인격에 대한 계시를 연구할 때, **아버지**를 훨씬 더 충분하게 이해한다.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만 인격체로서 너에게 내려오신다. 그리고 너는 이 동일한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도달하며; 이 신성한 **아들**들 집단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의 바로 그 인격을 **만유의 아버지**께서 직접 증여하셨음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영원한 아들의 광범한 영적 경영에 속하는 광범한 이 전체 활동에서, **아버지**가 인격자이신 것처럼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인격자이심을 잊지 말라. 정말로, 한때 인간 계층에 속했던 존재에게는, **만유의 아버지**보다 **영원한 아들**이 더 다가가기 쉬운 것이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 회로들을 통해서 진보하는 동안, 너희는 자신이 **아버지**를 식별할 준비를 갖추기 훨씬 전에, **아들**에게 도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사랑의 봉사 속에서 드러낸 이 신성한 속성들을 묵상함으로써, 너희는 **영원한 아들**의 더 많은 성품과 자비로운 본성을 더욱 납득해야 할 것인데, 이 **창조주 아들**은 한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너희 지방우주의 고양된 주권자다--**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낙원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본 문서를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연자**가 작성했음]

7.7.2 (89.1) The character of God could not possibly be intrinsically improved upon in the person of the Son, for the divine Father is infinitely perfect, but that character and personality are amplified, by divestment of the nonpersonal and nonspiritual, for revelation to creature being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much more than a personality, but all of the spirit qualities of the father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re spiritually present in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7.7.3 (89.2) The primal Son and his Sons are engaged in making a universal revelation of the spiritual and personal nature of the Father to all creation. In the central universe,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or on the inhabited planets, it is a Paradise Son who reveals the Universal Father to men and angels. The Eternal Son and his Sons reveal the avenue of creatur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even we of high origin understand the Father much more fully as we study the revelation of his character and personality in the Eternal Son and in the Sons of the Eternal Son.

7.7.4 (89.3) The Father comes down to you as a personality only through the divine Sons of the Eternal Son. And you attain the Father by this same living way; you ascend to the Father by the guidance of this group of divine Sons. And this remains true notwithstanding that your very personality is a direct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7.7.5 (89.4) In all these widespread activities of the far-flung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do not forget that the Son is a person just as truly and actually as the Father is a person. Indeed, to beings of the onetime human order the Eternal Son will be more easy to approach than the Universal Father. In the progress of the pilgrims of time through the circuits of Havona, you will be competent to attain the Son long before you are prepared to discern the Father.

7.7.6 (89.5) More of the character and merciful nature of the Eternal Son of mercy you should comprehend as you meditate on the revelation of these divine attributes which was made in loving service by your own Creator Son, onetime Son of Man on earth, now the exalted sovereign of your local universe —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7.7.7 (89.6) [Indited by a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formulate this statement depicting the Eternal Son of Paradise.]

제8편. 무한한 영

⇨ 007

유랜시아 책

009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8편
무한한 영

섹션

소개

1. 행동의 하나님
2. 무한한 영의 본성
3.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4. 신성한 사역의 영
5. 하나님의 현존
6. 무한한 영의 인격

PAPER 8

THE INFINITE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od of Action
2. Nature of the Infinite Spirit
3. Relation of the Spirit to the Father and the Son
4. The Spirit of Divine Ministry
5. The Presence of God
6.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소개

영원히 오래 전에,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첫” 사고{思考}가, 신성하게 표현하기에 완전하고 합당한 말씀을 **영원한 아들**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때 **사고_하나님**과 **말씀_하나님** 두 분에게는, 서로의 뜻을 표현하고 연합해서 행동할, 보편적이고 무한한 어떤 대행자를 바라는 최고 열망이 일어난다.

영원성이 시작될 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자신들이 서로 의존하고, 영원히 절대로 하나임을 무한히 인지하시게 되며, 따라서 두 분은 신성한 동역관계의 무한하고 영구적인 계약을 맺게 된다. 끝_없는 이 협약은, 영원성의 모든 궤도 전역에 걸친 두 분의 결합된 개념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이 영원성 사건 이후로 계속 이 신성한 합동을 이루시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의 영원한 기원을 마주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고 무한한 행위를--곧 절대 사고{思考}_계획의 이행을-- 공동으로 마음에 품는 즉시, 바로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이 완전히_성숙한_모습으로 실존해 생겨난다.

INTRODUCTION

8:0.1 (90.1) BACK in eternity, when the Universal Father's “first” infinite and absolute thought finds in the Eternal Son such a perfect and adequate word for its divine expression, there ensues the supreme desire of both the Thought-God and the Word-God for a universal and infinite agent of mutual expression and combined action.

8:0.2 (90.2) In the dawn of eternity both the Father and the Son become infinitely cognizant of their mutual interdependence, their eternal and absolute oneness; and therefore do they enter into an infinite and everlasting covenant of divine partnership. This never-ending compact is made for the execution of their united concepts throughout all of the circle of eternity; and ever since this eternity event the Father and the Son continue in this divine union.

8:0.3 (90.3) We are now face to face with the eternity origin of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The very instant that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conjointly conceive an identical and infinite action — the execution of an absolute thought-plan — that very moment, the Infinite Spirit springs full-fledgedly into existence.

신격들이 기원되는 순서를 그렇게 상술하면서, 나는 너희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다. 실제로는 세 분 모두가 영원부터 존재하시며; 실존적이지 않다. 세 분에게는 시작된 날도 끝나는 날도 없으며; 동격이고, 지존적이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다. 세 분은 지금 계시고, 항상 계시왔고, 영원히 계시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세 분으로 개별화돼 있지만, 영원히 연합된 인격자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이시다.

1. 행동의 하나님

영원한 과거에, **무한한 영**이 인격화됨에 따라서, 신{神}의 인격체 집합은 완전하게 되고 완성된다. **행동의 하나님**이 실존하며, 공간이라는 방대한 무대는, 창조를 공연하는 거대한 연극--곧 우주의 모험--, 즉 영원한 시대들의 신성한 파노라마를 위한 것이다.

무한한 영의 첫 행위는, 자신의 신성한 부모인, **아버지**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아들**을 면밀히 살피고 알아보는 것이다. 그는, 즉 **영**은, 두 분과 조건 없이 동일하다. 그는 두 분의 조합된 본성과 결합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분리된 인격 및 무한한 속성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한다. 그 다음은, 초월적인 자진성과 영감을 주는 자발성과 함께, 자유의사{自由意思}로, **신격의 제3 인격자**가 **제1 인격자** 및 **제2 인격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아들 하나님**을 영구히 신뢰하기로 고백한다.

이런 진행사항 본질에 내재되고, 각자 독립된 인격이면서 세 분 모두 행정적으로 합동됐음을 서로 인식하는 데 내재된, 영원성의 순환{循環}이 확립된다.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한다. **영원한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의 하나님**이 집행하심으로써, **만유의 아버지**의 목적을 창조적으로 전개하는, 다중적{多重的}이고 끝나지 않는 파노라마를 위해 우주 공간의 무대가 마련되는데, 이 **행동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창조자 동업관계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집행 대리인이다.

행동의 하나님이 활약하고, 잠잠하던 공간 저장소가 요동친다.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실존한다. 가상{假想}하는 이 영원성 순간 이전에, **낙원**에 내재된 공간_에너지가 실존하고 잠재적으로 작동하지만, 존재로서의 실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끊임없는 끌어당김에 대한 물질 실체들의 반응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물리적 인력이 측정될 수 없다. 영원히 먼 (가정된) 이 순간에 물질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0억 세계가 물질화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낙원**의 영원한 지배 안에 그것들을 붙잡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8:0.4 (90.4) In thus reciting the order of the origin of the Deities, I do so merely to enable you to think of their relationship. In reality they are all three existent from eternity; they are existential. They are without beginning or ending of days; they are co-ordinate, supreme, ultimate, absolute, and infinite. They are and always have been and ever shall be. And they are three distinctly individualized but eternally associated person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1. THE GOD OF ACTION

8:1.1 (90.5) In the eternity of the past, upon the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divine personality cycle becomes perfect and complete. The God of Action is existent, and the vast stage of space is set for the stupendous drama of creation — the universal adventure — the divine panorama of the eternal ages.

8:1.2 (90.6) The first act of the Infinite Spirit is the inspection and recognition of his divine parents, the Father-Father and the Mother-Son. He, the Spirit, unqualifiedly identifies both of them. He is fully cognizant of their separate personalities and infinite attributes as well as of their combined nature and united function. Next, voluntarily, with transcendent willingness and inspiring spontaneity, the Third Person of Deity, notwithstanding his equality with the First and Second Persons, pledges eternal loyalty to God the Father and acknowledges everlasting dependence upon God the Son.

8:1.3 (90.7) Inherent in the nature of this transaction and in mutual recognition of the personality independence of each and the executive union of all three, the cycle of eternity is established. The Paradise Trinity is existent. The stage of universal space is set for the manifold and never-ending panorama of the creative unfolding of the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and by the execution of the God of Action, the executive agency for the reality performances of the Father-Son creator partnership.

8:1.4 (91.1) The God of Action functions and the dead vaults of space are astir. One billion perfect spheres flash into existence. Prior to this hypothetical eternity moment the space-energies inherent in Paradise are existent and potentially operative, but they have no actuality of being; neither can physical gravity be measured except by the reaction of material realities to its incessant pull. There is no material universe at this (assumed) eternally distant moment, but the very instant that one billion worlds materialize, there is in evidence gravity sufficient and adequate to hold them in the everlasting grasp of Paradise.

하나님들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둘째 에너지 형태가 분출하며, 넘쳐흐르는 이 영(靈)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에 즉시 붙잡힌다. 그래서 두 부분의 인력이 내포된 우주는, 무한성 에너지와 접촉하고 신성(神性)의 영 속에 파묻힌다. 이런 방법으로, **무한한 영**의 연합된 정보 회로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정신이 의식하도록 생명을 심을 토양이 준비된다.

이런 잠재적 실존 씨앗이 **하나님**들의 중앙 창조에 두루 뿌려지면, **아버지**가 행동하시고, 피조 인격체들이 출현한다. 그 다음에 **낙원 신격**들의 현존이, 조직된 우주 전체를 채우고, 모든 물체와 존재를 **낙원** 쪽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무한한 영은 **하보나** 세계들의 탄생과 동시에 영구화되는데, 이 중앙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조합된 개념과 결합된 뜻에 순종하여,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일치되게,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창조된다. **제3 인격**자는 공동으로 창조하는 바로 이 행위로 인해 신격화되며, 그리하여 그는 영원히 **공동 창조주**가 되신다.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동역자 및 독점 행정관인 **제3 근원 및 중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행위 안에서, 두 분이 창조로 팽창하는 웅장하고 경이로운 시간이다. 이 움트는 시간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강력한 진행사항을 입증하기에는 빈약한, **무한한 영**의 계시들만 갖고 있을 뿐이며, **무한한 영**은, 다만 인격 및 의식(意識)하는 실존을 달성함과 동시에, 중앙우주 및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한한 영**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중앙우주 또한 영원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우주 역사의 전통적인 시작점이다. 만유의 중앙에 존재하고 매우 절묘하게 작동하는 방대한 우주를 구체화시킨, 그 창조적 에너지와 경영적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 또는 진행사항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고 어떤 기록도 실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너머에는 신비스런 영원성의 진행사항들과 무한성의 심연(深淵)이--곧 절대 신비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_묶이고 공간에_제약받는 필사 피조물 정신에게 겸손히 해석하는 뜻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순차적 기원(起源)을 그렇게 묘사한다. 사람의 정신에게 우주 역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야 하며, 나는 영원성의 역사 개념에 접근하는 이 기법을 제공하도록 지시 받았다. 물질 정신 안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최초 원인**이 요구되며; 따라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를 모든 창조의 **제1 근원 및 절대 중심**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우주 역사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고 창조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을,

8:1.5 (91.2) There now flashes through the creation of the Gods the second form of energy, and this outflowing spirit is instantly grasped by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us the twofold gravity-embraced universe is touched with the energy of infinity and immersed in the spirit of divinity. In this way is the soil of life prepared for the consciousness of mind made manifest in the associated intelligence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8:1.6 (91.3) Upon these seeds of potential existence, diffused throughout the central creation of the Gods, the Father acts, and creature personality appears. Then does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Deities fill all organized space and begin effectively to draw all things and beings Paradiseward.

8:1.7 (91.4) The Infinite Spirit eternalizes concurrently with the birth of the Havona worlds, this central universe being created by him and with him and in him in obedience to the combined concepts and united will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e Third Person deities by this very act of conjoint creation, and he thus forever becomes the Conjoint Creator.

8:1.8 (91.5) These are the grand and awful times of the creative expans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by, and in, the action of their conjoint associate and exclusive executive,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re exists no record of these stirring times. We have only the meager disclosures of the Infinite Spirit to substantiate these mighty transactions, and he merely verifies the fact that the central universe and all that pertains thereto eternalized simultaneously with his attainment of personality and conscious existence.

8:1.9 (91.6) In brief, the Infinite Spirit testifies that, since he is eternal, so also is the central universe eternal. And this is the traditional starting point of the histo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bsolutely nothing is known, and no records are in existence, regarding any event or transaction prior to this stupendous eruption of creative energy and administrative wisdom that crystallized the vast universe which exists, and so exquisitely function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Beyond this event lie the unsearchable transactions of eternity and the depths of infinity — absolute mystery.

8:1.10 (91.7) And we thus portray the sequential origi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an interpretative condescension to the time-bound and space-conditioned mind of mortal creatures. The mind of man must have a starting point for the visualization of universe history, and I have been directed to provide this technique of approach to the historic concept of eternity. In the material mind, consistency demands a First Cause; therefore do we postulate the Universal Father as the First Source and the Absolute Center of all creation, at the same time instructing all creature minds that the Son and the Spirit are coeternal

모든 피조물 정신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낙원 섬**의 실체성과 영원성,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신격 절대자**의 실체성과 영원성을 어떤 의미에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친다.

영원 속에 계신 **아버지**를 시간세계 자녀들의 물질 정신이 느끼는 데는, 손을 내미는 것으로 족하다. 어떤 자녀든지 처음에는 자녀_부모 입장의 관계를 숙지함으로써,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을 전체로 포용할 정도로 이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자신을 실체에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하는 정신은, 가족 관계 개념에, 공동체와 인종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 연방우주, 그리고 심지어 온갖 우주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한한 영의 본성

공동 창조주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과 전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시다. **무한한 영**은, **낙원 아버지**의 본성뿐 아니라 **원본 아들**의 본성 역시 완전하게 반영하신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주의 영**, **최상의 안내자**, **공동 창조주**, **신성한 행정관**, **무한한 정신**, **영들의 영**, **낙원 어머니 영**, **공동 행위자**, **최종 협조자**, **편재{遍在}하는 영**, **절대 지성**, **신성한 행위** 등이며; **유란시아**에서는 때로 시공우주 정신과 혼동된다.

신격의 제3 인격자를 **무한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 피조물은, 물질을 기본 실체로 보고, 영과 함께 정신을 물질에 근거한 어떤 가정적(假定的)인 것들로 보려는 실책을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그를, **무한한 실체**, **우주의 조직가**, 또는 **인격 협조자**라고 부른다면 **제3 근원 및 중심**을 더 잘 납득할 것이다.

신성{神性}이 우주에 계시된 존재로서의 **무한한 영**은 불가사의하며,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철저히 벗어난다. 영의 절대성을 감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묵상하고, **원본 아들**의 영원성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 정말로 신비로움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더욱 그렇다.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의 본성의 모든 면 중에서 무한성을 가장 현저히 드러낸다. 총괄우주가 결국에는 무한에 이르기까지 팽창하더라도, **공동 행위자**의 영 현존, 에너지 통제, 및 정신 잠재력은, 그런 무제한 창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with the Father in all phases of universe history and in all realms of creative activity. And we do this without in any sense being disregarding of the reality and eternity of the Isle of Paradise and of the Unqualified, Universal, and Deity Absolutes.

8:1.11 (92.1) It is enough of a reach of the material mind of the children of time to conceive of the Father in eternity. We know that any child can best relate himself to reality by first mastering the relationships of the child-parent situation and then by enlarging this concept to embrace the family as a whole. Subsequently the growing mind of the child will be able to adjust to the concept of family relations, to relationships of the community, the race, and the world, and then to those of the universe, the superuniverse, even the universe of universes.

2. NATURE OF THE INFINITE SPIRIT

8:2.1 (92.2) The Conjoint Creator is from eternity and is wholly and without qualification one with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reflects in perfection not only the nature of the Paradise Father but also the nature of the Original Son.

8:2.2 (92.3)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known by numerous titles: the Universal Spirit, the Supreme Guide, the Conjoint Creator, the Divine Executive, the Infinite Mind, the Spirit of Spirits, the Paradise Mother Spirit, the Conjoint Actor, the Final Co-ordinator, the Omnipresent Spirit, the Absolute Intelligence, the Divine Action; and on Urantia he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cosmic mind.

8:2.3 (92.4) It is altogether proper to denominate the Third Person of Deity the Infinite Spirit, for God is spirit. But material creatures who tend towards the error of viewing matter as basic reality and mind, together with spirit, as postulates rooted in matter, would better comprehend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f he were called the Infinite Reality, the Universal Organizer, or the Personality Co-ordinator.

8:2.4 (92.5) The Infinite Spirit, as a universe revelation of divinity, is unsearchable and utterly beyond human comprehension. To sense the absoluteness of the Spirit, you need only contemplate the inf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tand in awe of the eternity of the Original Son.

8:2.5 (92.6) There is mystery indeed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but not so much as in the Father and the Son. Of all aspects of the Father's nature, the Conjoint Creator most strikingly discloses his infinity. Even if the master universe eventually expands to infinity, the spirit presence, energy control, and mind potential of the Conjoint Actor

고 발견될 것이다.

무한한 영은, 모든 면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성, 응보, 및 사랑을 공유하더라도,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광우주에 대한 **낙원 신격**들의 자비 사역자가 된다. **영**은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곧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자비를 베푸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성한 **아들**들이 드러내듯이, 신성한 **영**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모든 선함이 **아버지**로부터 기원되기 때문에,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함을 지닐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선함을 **영**의 행위에서 더 잘 납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들**의 불변성은, **무한한 영**에게 속한 인격체들의 애정 어린 사역과 끊임없는 봉사로 인해, 영(靈) 존재들에게, 그리고 구체들에 있는 물질 피조물에게 확실히 실현된다.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고(思考)와 진실한 성품 전체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신성의 이 숭고한 특징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정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에 종속하여, 최상에 가까운 시공우주 정신 수준까지 조정된다.

3.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영원한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첫” 사고(思考)가 말씀으로 표현된 분이듯이, **공동 행위자**는 완성된 “처음” 창조 개념 또는 완전한 계획이 이행된 분인데, 절대적 사고와 말씀을 통합하는 **아버지**와 **아들**, 두 인격체가 동업관계로 결합하여 행동하기 위해서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중앙 창조, 즉 명령에 의한 창조와 동시에 영존하게 되며, 오직 이 중앙 창조계만이 우주들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한다.

제3 근원이 인격화 된 이래, **제1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만유의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영원한 아들**에게 위임하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가능한 모든 권함과 능력을 **공동 행위자**에게 증여한다.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동격 인격체들을 통해서, 실존하게 된 모든 **하보나** 이후의 우주를 계획하고 생기게 했다. 최초의 중앙 창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유지한 것과 똑같은 개인적 관계를, **영**은 그 다음의 모든 창조에서 **아들**에 대해 유지한다.

will be found adequate to meet the demands of such a limitless creation.

8:2.6 (92.7) Though in every way sharing the perfection, the righteousness, and th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Infinite Spirit inclines towards the mercy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thus becoming the mercy minister of the Paradise Deities to the grand universe. Ever and always — universally and eternally — the Spirit is a mercy minister, for, as the divine Sons reveal the love of God, so the divine Spirit depicts the mercy of God.

8:2.7 (93.1) It is not possible that the Spirit could have more of goodness than the Father since all goodness takes origin in the Father, but in the acts of the Spirit we can the better comprehend such goodness. The Father's faithfulness and the Son's constancy are made very real to the spirit beings and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spheres by the loving ministry and ceaseless service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8:2.8 (93.2) The Conjoint Creator inherits all the Father's beauty of thought and character of truth. And these sublime traits of divinity are coordinated in the near-supreme levels of the cosmic mind in subordination to the infinite and eternal wisdom of the unconditioned and limitless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3. RELATION OF THE SPIRIT TO THE FATHER AND THE SON

8:3.1 (93.3) As the Eternal Son is the word expression of the “first” absolute and infinit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so the Conjoint Actor is the perfect execution of the “first” completed creative concept or plan for combined action by the Father-Son personality partnership of absolute thought-word unio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ternalizes concurrently with the central or fiat creation, and only this central creation is eternal in existence among universes.

8:3.2 (93.4) Since the personalization of the Third Source, the First Source no more personally participates in universe creation. The Universal Father delegates everything possible to his Eternal Son; likewise does the Eternal Son bestow all possible authority and power upon the Conjoint Creator.

8:3.3 (93.5) The Eternal Son and the Conjoint Creator have, as partners and through their coordinate personalities, planned and fashioned every post-Havona universe which has been brought into existence. The Spirit sustains the same personal relation to the Son in all subsequent creation that the Son sustains to the Father in the first and central creation.

영원한 아들의 한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한 **창조적 영**이 너희와 너희의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들이 이미 조직한 것을 **아버지**께서 신실함으로 유지하시는 동안, 그들의 작품을 양육하고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든 피조물을 보살피는 일이,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에게 맡겨진다.

무한한 영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아들**의 유능한 대리인인데,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혼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공동 기획(企劃)을 실행하는 대리인이다. 우주들의 피조물을 완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아버지**의 계획을 **영원한 아들**이 받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 즉 상승 기획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이 되던 순간에, **무한한 영**은 두 분의 일치된 영원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경영자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무한한 영**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그리고 영 인격체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드렸으며; 의지를 지니고 생존하는 피조물,을 **낙원**처럼 완비되는 신성한 경지로 고양시키는, 엄청난 계획에 모든 것을 헌신해 왔다.

무한한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업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무한한 영**은 신성한 사고와 말씀이 통합된 공동 대표자다.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께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존재들은, 오직 **영**의 끈기 있는 보살핌을 통해서만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만유(萬有)의 중심에서 **낙원 신격들** 가운데 제일 먼저 **무한한 영**에 도달하게 된다. **제3 인격자**가 **제2** 및 **제1 인격자**를 감싸고 있으며,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께 소개될 모든 후보자는, 반드시 **제3 인격자**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다른 면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대변하고 비슷하게 섬긴다.

4. 신성한 사역의 영

물리적 우주에서는 **낙원** 인력이 모든 물체를 그 안에 함께 붙들고 있듯이, 영적 우주에서는,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고(思考)를 해석하며, “육신이 됐을” 때, 그 말씀은 관련된 **창조주들** 전체의 본성인 애정 어린 자비를 나타낸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영적인 이 창조계 전체에, 그리고 이 창조계 도처에 방대한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무한한**

8.3.4 (93.6) A Creator Son of the Eternal Son and a Creative Spirit of the Infinite Spirit created you and your universe; and while the Father in faithfulness upholds that which they have organized, it devolves upon this Universe Son and this Universe Spirit to foster and sustain their work as well as to minister to the creatures of their own making.

8.3.5 (93.7) The Infinite Spirit is the effective agent of the all-loving Father and the all-merciful Son for the execution of their conjoint project of drawing to themselves all truth-loving souls on all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The very instant the Eternal Son accepted his Father's plan of perfection attainment for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e moment the ascension project became a Father-Son plan, that instant the Infinite Spirit became the conjoint administrator of the Father and the Son for the execution of their united and eternal purpose. And in so doing the Infinite Spirit pledged all his resources of divine presence and of spirit personalities to the Father and the Son; he has dedicated all to the stupendous plan of exalting surviving will creatures to the divine heights of Paradise perfection.

8.3.6 (93.8) The Infinite Spirit is a complete, exclusive, and universal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All knowledge of the Father-Son partnership must be had through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representative of the divine thought-word union.

8.3.7 (93.9) The Eternal Son is the only avenue of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only means of attaining the Eternal Son. Only by the patient ministry of the Spirit are the ascendant beings of time able to discover the Son.

8.3.8 (94.1)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Infinite Spirit is the first of the Paradise Deities to be attained by the ascending pilgrims. The Third Person enshrouds the Second and the First Persons and therefore must always be first recognized by all who are candidates for presentation to the Son and his Father.

8.3.9 (94.2) And in many other ways does the Spirit equally represent and similarly serve the Father and the Son.

4. THE SPIRIT OF DIVINE MINISTRY

8.4.1 (94.3) Paralleling the physical universe wherein Paradise gravity holds all things together is the spiritual universe wherein the word of the Son interprets the thought of God and, when “made flesh,” demonstrates the loving mercy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associated Creators. But in and through all this material and spiritual

영과 그의 **영** 자손들은, 협동해서 고안{考案}하고 조성한 지성 자녀들에게, 신성한 부모로서 통합된, 자비, 인내심, 및 영구적 애정을 보여준다. 정신에 대한 영구적인 사역이, **영**의 신성한 성품의 본질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의 **영** 자손 전체가, 사역에 대한 이 열정, 즉 봉사하고자 하는 이 신성한 충동을 함께 갖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아들**은 자비시고, **영**은 사역이시다--모든 지성 피조물에 신성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 **영**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의인화{擬人化}하는 분이며; 두 분은 우주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신다. **영**은 피조물 창조계에 적용되는 사랑, 즉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사랑이다.

유란시아에서는 **무한한 영**이, 편재하는 영향력, 즉 보편적 현존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보나**에서 너희는 **무한한 영**이 실제로 보살피고 몸소 현존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낙원 영**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들을 돌보는 그의 동격 **영**들, 그리고 하위 인격체들 각자에게, 모범적이고 영감 주는 원형{原型}이다. **무한한 영**은, 이 신성한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이 초월적으로 일곱 번 출현하신 일에 충분히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하보나** 회로들에 일곱 번 증여되는 과정에서 원본 **미가엘 아들**과 함께 했는데, 그리하여 완전한 저 높은 곳에서 이 궤도들을 지나가는 각 시간 순례자들에게, 동정적이고 이해심 많은 영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제시된 지방우주를 창조자 자격으로 책임지기로 수락할 때, 이 **미가엘 아들**이 창조적 모험의 사명을 시작할 때, **무한한 영**에게 속한 인격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역자로서 자신을 바친다. 특히 **창조적 딸**,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의 인격자 안에서, 점점 더 높은 영적 달성 수준을 향한 물질 피조물의 상승을 촉진하는 과제에 **무한한 영**이 헌신돼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이 모든 작업은, 지방우주의 이 **창조주 아들**의 목적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그 인격체들과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진행된다.

한 우주에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인격을 계시하는 거대한 과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여하듯이, **무한한 영**은, 각 우주의 모든 자녀의 개인 정신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사랑을 계시하는, 끝없는 사역에 헌신돼 있다. **영**은, 이 지방 창조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일부가 하는 것처럼,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물질 인종들에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무한한 영**과 그의 동격 **영**들은 자신을 낮추는데, 이 세상 실존의 낮은 경로를 통해서 너희 옆에 서 있고 너희를 안내하는 천사들로서 나타나기까지, 놀라운 일련의 신성{神性} 감소 과정을 기쁨으로 견딘다.

creation there is a vast stage whereon the Infinite Spirit and his spirit offspring show forth the combined mercy, patience, and everlasting affection of the divine parents towards the intelligent children of their co-operative devising and making. Everlasting ministry to mind is the essence of the Spirit's divine character. And all the spirit offspring of the Conjoint Actor partake of this desire to minister, this divine urge to service.

8:4.2 (94.4) God is love, the Son is mercy, the Spirit is ministry — the ministry of divine love and endless mercy to all intelligent creation. The Spirit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Father's love and the Son's mercy; in him are they eternally united for universal service. The Spirit is love applied to the creature creation, the combined love of the Father and the Son.

8:4.3 (94.5) On Urantia the Infinite Spirit is known as an omnipresent influence, a universal presence, but in Havona you shall know him as a personal presence of actual ministry. Here the ministry of the Paradise Spirit is the exemplary and inspiring pattern for each of his co-ordinate Spirits and subordinate personalities ministering to the created being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In this divine universe the Infinite Spirit fully participated in the seven transcendental appearances of the Eternal Son; likewise did he participate with the original Michael Son in the seven bestowals upon the circuits of Havona, thereby becoming the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spirit minister to every pilgrim of time traversing these perfect circles on high.

8:4.4 (94.6) When a Creator Son of God accepts the creatorship charge of responsibility for a projected local univers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pledge themselves as the tireless ministers of this Michael Son when he goes forth on his mission of creative adventure. Especially in the persons of the Creative Daughter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do we find the Infinite Spirit devoted to the task of fostering the ascension of the material creatures to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piritual attainment. And all this work of creature ministry is done in perfect harmony with the purposes, an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personalities, of the Creator Sons of these local universes.

8:4.5 (94.7) As the Sons of God are engaged in the gigantic task of revealing the Father's personality of love to a universe, so is the Infinite Spirit dedicated to the unending ministry of revealing the combined love of the Father and the Son to the individual minds of all the children of each universe. In these local creations the Spirit does not come down to the material races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s do certain of the Sons of God, but the Infinite Spirit and his co-ordinate Spirits do downstep themselves, do joyfully undergo an amazing series of divinity attenuations,

무한한 영은, 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감소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리고 한 인격자로서, 동물이 기원되는 구체의 어떤 존재에게든지 매우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영**은, 만물의 중앙에서 **신격의 제3 인격자**로서 자신의 실존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행한다.

공동 창조주는 정말로, 또한 영원토록, 위대한 돌보는 인격체, 즉 보편적 자비 사역자다. **영**의 사역을 납득하려면, 그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아들**의 영원한 자비가 합쳐진 모습이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영**의 사역이 오직 **영원한 아들**과 **만유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일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한한 영** 역시, 자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영역의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제3 인격자**는 신성한 존엄성에 속하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우주에 자비 사역을 베풀는다.

사람은, 이 **무한한 영**의 피조물 계통에 속하는 하위 계층들의 사랑스럽고 꾸준한 사역을 더 많이 배울 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이 통합된 **행동**의 초월 본성(本性), 그리고 비길 데 없는 성품을 훨씬 더 사모하고 동경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 **영**은, “언제든지 정의의 바라보는 주의 눈”이며, “저희의 기도(祈禱)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신성한 귀”이다.

5. 하나님의 현존

무한한 영의 뛰어난 속성은 편재성(遍在性)이다. 온갖 우주 전체에는, 완전히_충만한 이 영(靈)이 어디든지 현존하는데, 보편적이고 신성한 정신의 현존과 매우 유사하다. **신격의 제2 인격자** 및 **제3 인격자**의 항상_현존하는 영들이, 모든 세계에서 두 분을 대표한다.

아버지는 무한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유의사로만 제한된다. **아버지**는 **조울사**를 증여할 때, 그리고 인격을 회로화할 때 홀로 행동하지만, 지성 존재와 영 세력들을 접촉할 때에는,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들과 인격체들을 활용하신다. 그는 의지로 **아들**과 또는 **공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현존하며,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 현존하신다. **아버지**는 가장 확실하게 어디든지 현존하시며, 우리는, 관련된 세력, 영향, 및 현존을 제외한 이 다양성 전체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현존을 식별한다.

너희의 신성시되는 문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낙원**에 있는 **무한한 영**과 너희 지

until they appear as angels to stand by your side and guide you through the lowly paths of earthly existence.

8:4.6 (95.1) By this very diminishing series the Infinite Spirit does actually, and as a person, draw very near to every being of the animal-origin spheres. And all this the Spirit does without in the least invalidating his existence as the Third Person of Deity at the center of all things.

8:4.7 (95.2) The Conjoint Creator is truly and forever the great ministering personality, the universal mercy minister. To comprehend the ministry of the Spirit, ponder the truth that he is the combined portrayal of the Father's unending love and of the Son's eternal mercy. The Spirit's ministry is not, however, restricted solely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Eternal Son and the Universal Father. The Infinite Spirit also possesses the power to minister to the creatures of the realm in his own name and right; the Third Person is of divine dignity and also bestows the universal ministry of mercy in his own behalf.

8:4.8 (95.3) As man learns more of the loving and tireless ministry of the lower orders of the creature family of this Infinite Spirit, he will all the more admire and adore the transcendent nature and matchless character of this combined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Indeed is this Spirit “the eyes of the Lord which are ever over the righteous” and “the divine ears which are ever open to their prayers.”

5. THE PRESENCE OF GOD

8:5.1 (95.4) The outstanding attribute of the Infinite Spirit is omnipresence.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 is everywhere present this all-pervading spirit, which is so akin to the presence of a universal and divine mind. Both the Second Person and the Third Person of Deity are represented on all worlds by their ever-present spirits.

8:5.2 (95.5) The Father is *infinite* and is therefore limited only by volition. In the bestowal of Adjusters and in the encirclement of personality, the Father acts alone, but in the contact of spirit forces with intelligent beings, he utilizes the spirits and personalitie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t will spiritually present equally with the Son or with the Conjoint Actor; he is present *with* the Son and *in* the Spirit. The Father is most certainly everywhere present, and we discern his presence by and through any and all of these diverse but associated forces, influences, and presences.

8:5.3 (95.6) In your sacred writings the term *Spirit of God* seems to be used interchangeably to

방우주의 **창조적 영**, 둘 다를 호환적{互換的}으로 뜻하도록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거룩한 영**은, **낙원 무한한 영**의 이 **창조적 딸**의 영적 회로다. **거룩한 영**은, 각 지방우주에 고유한 회로이고, 그 창조계의 영적 영역에 제한돼 있지만; **무한한 영**은 어디든지 계신다.

많은 영적 영향력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존재한다. 심지어 **사교 조율사**들의 활동도, 다른 모든 영향력과는 무관하지만, **무한한 영**과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조합된 영향력의 역사역과 일정하게 부합한다. 이 영적 현존들이 **유란시아인**의 삶에서 작동할 때, 그들을 구별할 수 없다. 다양하게 기원됐음에도, 그들은 너희 정신에서, 그리고 너희 혼에서, 하나의 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결합된 이 영적 보살핌이 체험될 때, 그것은 너희에게 **지존자**의 영향력이 되는데, 이 **지존자**는, “너희를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줄 수 있고, 높은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무한한 영이 **공동 행위자**임을;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작용하시고 있음을; 그가 자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아들**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인식해서, 그리고 많은 추가적 이유로 인해서, **무한한 영**의 영 현존이 종종, “**하나님**의 영”으로 간주된다.

영적 사역으로 접촉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및 **칠중 하나님**의 영들이--심지어 **지존자 하나님**의 영도-- 연합해서 그렇게 접촉하기 때문이다.

6. 무한한 영의 인격

제3 근원 및 중심이 널리 증여되고 광범하게 분배된다고 해서, 그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다르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라. **무한한 영**은, 하나의 우주 현존, 영원한 행위, 시공 우주 능력, 거룩한 영향력, 및 보편적 정신이며; 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지만, 또한 참되고 신성한 인격체이다.

무한한 영은, 완성되고 완전한 인격체, 즉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과 신으로서 동등하신 분이고 협조자이다.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처럼, 우주들의 고등 지성체에게 실체이고 식별되며; 정말로 그 이상{以上}인데, 모든 상승자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도달해야 될 분이 **영**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는, 너희가

designate both the Infinite Spirit on Paradise and the Creative Spirit of your local universe.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ual circuit of this Creative Daughter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The Holy Spirit is a circuit indigenous to each local universe and is confined to the spiritual realm of that creation; but the Infinite Spirit is omnipresent.

8:5.4 (95.7) There are many spiritual influences, and they are all as one. Even the work of the Thought Adjusters, though independent of all other influences, unvaryingly coincides with the spirit ministry of the combine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s these spiritual presences operate in the lives of Urantians, they cannot be segregated. In your minds and upon your souls they function as one spirit, notwithstanding their diverse origins. And as this united spiritual ministration is experienced, it becomes to you the influence of the Supreme, “who is ever able to keep you from failing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your Father on high.”

8:5.5 (96.1) Ever remember that the Infinite Spirit is the Conjoint Actor; both the Father and the Son are functioning in and through him; he is present not only as himself but also as the Father and as the Son and as the Father-Son. In recognition of this and for many additional reasons the spirit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pirit of God.”

8:5.6 (95.2) It would also be consistent to refer to the liaison of all spiritual ministry as the spirit of God, for such a liaison is truly the union of the spirits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Spirit, and God the Sevenfold — even the spirit of God the Supreme.

6.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8:6.1 (96.3) Do not allow the widespread bestowal and the far-flung distribu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o obscure or otherwise detract from the fact of his personality. The Infinite Spirit is a universe presence, an eternal action, a cosmic power, a holy influence, and a universal mind; he is all of these and infinitely more, but he is also a true and divine personality.

8:6.2 (96.4) The Infinite Spirit is a complete and perfect personality, the divine equal and co-ordinat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Conjoint Creator is just as real and visible to the higher intelligences of the universes as are the Father and the Son; indeed more so, for it is the Spirit whom all ascenders must attain before they may approach the Father through the Son.

8:6.3 (96.5)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인격체와 연관 짓는 그 모든 속성을 소유하신다. **영**은 절대 정신을 타고난다: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영**은 정신 뿐만 아니라 의지도 지니신다. 자신의 은사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영**이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

“**영**의 사랑”은 실재하고, 그의 슬픔도 그러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무한한 영**을 **낙원 신격**으로 보든지 또는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으로 보든지, 우리는 **공동 창조주가 제3 근원 및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인격자임을 발견한다. 이 신성한 인격체는 또한 우주에게 한 인격자로서 반응하신다. **영**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영**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영** 자신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영**은 창조된 존재들에게 직접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갖 우주의 멀리 있는 세계들에 대해 **무한한 영**이 사역하시는 현상을 보더라도,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지원되는 다중{多重} 존재로 구성된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군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바로 이 조정하는 **신격**을 상상하더라도, **영**의 편재성을 인식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로 이 **제3 근원 및 중심**이 한 인격자, 즉 모든 물체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공동 창조주**이심을 확신한다.

우주들의 경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완전하게 영원히 상호연합한다. 각자가 전체 창조에서 어떤 개인 사역에 참여하더라도, 창조하고 통제하는 수고에 세 분 전체가 신성하게 절대로 연결돼 있고, 이것이 영원토록 세 분을 **하나**로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무조건으로 완비{完備}된 상태에서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 공동으로 현존하시는데, **영**은 **아버지**와 같고 **아들**과 같으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영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영**이 두 분과 같기 때문이다.

[**무한한 영**의 본성과 활동을 설명하도록 **태고 항존자**가 위임한,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유란시아**에 제시했음]

Deity, is possessed of all the attributes which you associate with personality. The Spirit is endowed with absolute mind: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The Spirit is endowed not only with mind but also with will. In the bestowal of his gifts it is recorded: “But all these works that one and the selfsame Spirit, dividing to every man severally and as he wills.”

8:6.4 (96.6) “The love of the Spirit” is real, as also are his sorrows; therefore “Grieve not the Spirit of God.” Whether we observe the Infinite Spirit as Paradise Deity or as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we find that the Conjoint Creator is not only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ut also a divine person. This divine personality also reacts to the universe as a person. The Spirit speaks to you,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you.” The Spirit exerts a direct and personal influence upon created beings,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8:6.5 (96.7) Even though we behold the phenomenon of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remote world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even though we envisage this same co-ordinating Deity acting in and through the untold legions of the manifold beings who tak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ven though we recognize the omnipresence of the Spirit, nonetheless, we still affirm that this same Third Source and Center is a person, the Conjoint Creator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and all universes.

8:6.6 (96.8)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s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perfectly and eternally interassociated. Though each is engaged in a personal ministry to all creation, all three are divinely and absolutely interlocked in a service of creation and control which forever makes them one.

8:6.7 (97.1)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Father and the Son are mutually present, always and in unqualified perfection, for the Spirit is like the Father and like the Son, and also like the Father and the Son as they two are forever one.

8:6.8 (97.2) [Presented on Urantia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commissioned by the Ancients of Days to portray the nature and work of the Infinite Spirit.]

제9편. 무한한 영과 우주의 관계

⇨ 008

유랜시아 책

010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9편

무한한 영과 우주의 관계

섹션

소개

1.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
2. 편재하는 영
3. 우주 조종자
4. 절대 정신
5. 정신의 사역
6. 정신_인력 회로
7. 우주 반사성
8. 무한한 영의 인격체

PAPER 9

REL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2. The Omnipresent Spirit
3. The Universal Manipulator
4. The Absolute Mind
5. The Ministry of Mind
6. The Mind-Gravity Circuit
7. Universe Reflectivity
8.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소개

낙원이 현존하는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자신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 결합할 때, 어떤 생소한 일이 발생했다. 절대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를 조종하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 받은 무제한 영적 권위로서 **공동 행위자**가 인격화 하리라는 것을, 이 영원성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예시하지 않는다. 그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중앙에 집중된 완비(完備)라는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인격 절대론이라는 족쇄로부터, **아버지**의 해방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해방은, 그 후에 진화하는 우주의 물질 피조물까지도 섬기는 영으로서 이바지하도록 잘 적응된 존재들을, **공동 창조주**가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에서 드러난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의지, 영적 사고와 목적은 무한하며; 그는 우주의 유지자이다. **아들**의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은 무한하며; 그는 우주의 계시자이다. **낙원**은, 힘을 부여하는 잠재력, 그리고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며; **낙원**은 우주의 안정장치다. **공동 행위자**는, 합

INTRODUCTION

9:0.1 (98.1) A STRANGE thing occurred when, in the presence of Paradis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unite to personalize themselves. Nothing in this eternity situation foreshadows that the Conjoint Actor would personalize as an unlimited spirituality coordinated with absolute mind and endowed with unique prerogatives of energy manipulation. His coming into being completes the Father's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centralized perfection and from the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And this liberation is disclosed in the amazing power of the Conjoint Creator to create beings well adapted to serve as ministering spirits even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subsequently evolving universes.

9:0.2 (98.2) The Father is infinite in love and volition, in spiritual thought and purpose; he is the universal upholder. The Son is infinite in wisdom and truth, in spiritual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he is the universal revealer. Paradise is infinite in potential for force endowment and in capacity for energy

성하는 독특한 특권, 즉 모든 현존 우주 에너지, 모든 실제 우주 영, 그리고 모든 진정한 우주 지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제3 근원 및 중심**은,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에서 나타난, 다중{多重}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계를 보편적으로 통합하는 분이다.

무한한 영, 즉 **공동 창조주**는 보편적이고 신성한 사역자이다. 안정되고 변치 않으며 의로운 **낙원 삼위일체**의 응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영**은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돌보신다. 그의 영향력과 인격체들이 항상 너희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실제로 너희를 알고 진정으로 너희를 이해한다.

우주들 도처에서 **공동 행위자**의 대행기관들이, 모든 공간의 힘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조종한다. **제1 근원 및 중심**과 마찬가지로, **제3 근원 및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전부에 반응한다. **공동 행위자**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분인데, 만유가--곧 물체와 의미와 가치; 그리고 에너지와 정신과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

무한한 영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 영원성 계도에 내주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영**은 완전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곧 절대적이다.

1.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

제3 근원 및 중심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관계를 나타내고 기능을 인식하는 이름이다: **영 하나님**으로서, 그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협조자이고 신으로서 동등하다. **무한한 영**으로서, 그는 편재하는 영적 영향력이다. **우주 조종자**로서, 그는 동력{動力}을 통제하는 피조물의 조상이며, 시공우주 공간 세력들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다. **공동 행위자**로서, 그는 **아버지_아들**의 합동 대표자이고 동업관계의 행정관이다. **절대적 정신**으로서, 그는 우주들 전반에 지성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행동의 하나님**으로서, 그는 움직임, 변화, 및 관계의 명백한 조상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 가운데 더러는 **아버지**로부터, 더러는 **아들**로부터 유래되며, 한편 더러는 **아버지** 또는 **아들** 안에 능동적으로 몸소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제3 근원 및 중심**을 영구화시키는 **아버지_아들** 동업관계가 **낙원**의 완전성이라는 영원한 사실과 일치하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서, 시종일관하게 작용한다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이런 속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공동 창조주**는, **신격의 제1 인격자** 및 **제2 인격**

dominance; it is the universal stabilizer. The Conjoint Actor possesses unique prerogatives of synthesis, infinite capacity to co-ordinate all existing universe energies, all actual universe spirits, and all real universe intellect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the universal unifier of the manifold energies and diverse creations which have appeared in consequence of the divine plan and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9:0.3 (98.3)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Creator, is a universal and divine minister. The Spirit unceasingly ministers the Son's mercy and the Father's love, even in harmony with the stable, unvarying, and righteous justice of the Paradise Trinity. His influence and personalities are ever near you; they really know and truly understand you.

9:0.4 (98.4) Throughout the universes the agencies of the Conjoint Actor ceaselessly manipulate the forces and energies of all space. Lik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Third is responsive to both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The Conjoint Actor is the revelation of the unity of God, in whom all things consist — things, meanings, and values; energies, minds, and spirits.

9:0.5 (98.5) The Infinite Spirit pervades all space; he indwells the circle of eternity; and the Spirit, like the Father and the Son, is perfect and changeless — absolute.

1.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1.1 (98.6)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known by many names, all designative of relationship and in recognition of function: As God the Spirit, he is the personality co-ordinate and divine equal of God the Son and God the Father. As the Infinite Spirit, he is an omnipresent spiritual influence. As the Universal Manipulator, he is the ancestor of the power-control creatures and the activator of the cosmic forces of space. As the Conjoint Actor, he is the joint representative and partnership executive of the Father-Son. As the Absolute Mind, he is the source of the endowment of intellect throughout the universes. As the God of Action, he is the apparent ancestor of motion, change, and relationship.

9:1.2 (99.19) Some of the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derived from the Father, some from the Son, while still others are not observed to be actively and personally present in either the Father or the Son — attributes that can hardly be explained except by assuming that the Father-Son partnership which eternalize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consistently functions in consonance with, and in recognition of, the eternal

자의 통합되고 무한한 개념들을 넉넉하게 실현한다.

너희는 **아버지**를 원본 창조자로, 그리고 **아들**을 영적 경영자로 예견하는 한편, **제3 근원 및 중심**을 보편적 조정자로, 무제한 협동 사역자로 생각해야 한다. **공동 행위자**는 실재하는 모든 실체를 상호 관련시키는 분이며, **아버지**의 사고{思考}와 **아들**의 말씀을 간직하는 **신격** 저장소이고, 행동할 때에는 중앙 **섬**의 물질 절대성에 끊임없이 주목하신다. **낙원 삼위일체**가 **진보**라는 보편적 질서를 제정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공동 창조주** 및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영역이다. 실제적이거나 실재화 하는 어떤 실체든지, **제3 근원 및 중심**과 맺은 궁극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만유의 아버지는 에너지 이전{以前} 부문, 영 이전 부문, 및 인격 부문을 관장하며; **영원한 아들**은 영적 활동 분야를 지배하며; **낙원 섬** 현존은 물리적 에너지 및 물질화 하는 동력 범위를 통합하며; **공동 행위자**는 **아들**을 대변하는 무한한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낙원**의 힘과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조종자로서 활동하는데, 그리하여 보편적 절대 정신을 실존하게 한다. **공동 행위자**는 광우주 전역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인격체로서 활약하는데, 특히 영적 가치, 물리적 에너지 관계, 및 참된 정신 의미를 가진 고등 분야에서 활약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에너지와 영이 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활약하며; 정신으로 모든 반응을 지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며,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3 근원**은 항상 **제1 근원 및 중심**의 본성을 나타낸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편재성{遍在性}을 완전하게 조건 없이 공유하는데, 때로는 **편재하는 영**이라고 부른다. 독특하면서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정신의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의 편재성을 공유하며; 영의 지식은 심오하고 완벽하다. **공동 창조주**는, **만유의 아버지**의 어떤 전능성 국면들을 나타내지만, 정신 영역에서만은 실제로 전능하다. **신격**의 **제3 인격자**는 정신 부문들에 대한 지적{知的} 중심이고 보편적 경영자이며; 이 면에서 그는 절대적이다--곧 그의 주권은 무조건적이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업관계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와 **낙원**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어떤 기능에서는, 그가 체험 **신격**들의--곧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의--

fact of the absoluteness of Paradise. The Conjoint Creator embodies the fullness of the combined and infinite concepts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s of Deity.

9:1.3 (98.8) While you envisage the Father as an original creator and the Son as a spiritual administrator, you should think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a universal co-ordinator, a minister of unlimited co-operation. The Conjoint Actor is the correlator of all actual reality; he is the Deity repository of the Father's thought and the Son's word and in action is eternally regardful of the material absoluteness of the central Isle. The Paradise Trinity has ordained the universal order of progress, and the providence of God is the domain of the Conjoint Creator and the evolving Supreme Being. No actual or actualizing reality can escape eventu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1.4 (98.9) The Universal Father presides over the realms of pre-energy, prespirit, and personality; the Eternal Son dominates the spheres of spiritual activities; the presence of the Isle of Paradise unifies the domain of physical energy and materializing power; the Conjoint Actor operates not only as an infinite spirit representing the Son but also as a universal manipulator of the forces and energies of Paradise,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the universal and absolute mind. The Conjoint Actor function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as a positive and distinct personality, especially in the higher spheres of spiritual values, physical-energy relationships, and true mind meanings. He functions specifically wherever and whenever energy and spirit associate and interact; he dominates all reactions with mind, wields great power in the spiritual world, and exerts a mighty influence over energy and matter. At all times the Third Source is expressive of the natu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9:1.5 (98.10) The Third Source and Center perfectly and without qualification shares the omnipre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sometimes being called the Omnipresent Spirit. In a peculiar and very personal manner the God of mind shares the omnisc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the knowledge of the Spirit is profound and complete. The Conjoint Creator manifests certain phases of the omnipotenc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is actually omnipotent only in the domain of mind. The Third Person of Deity is the intellectual center and the universal administrator of the mind realms; herein is he absolute — his sovereignty is unqualified.

9:1.6 (98.11) The Conjoint Actor seems to be motivated by the Father-Son partnership, but all his actions appear to recognize the Father-Paradise relationship. At times and in certain functions he seems to compensate for the

불충분한 발전을 보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무한한 신비가 여기에 있다:**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낙원**으로서, 자신의 무한성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그리고 나서, 신성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아들**의 영적 본성을 반영하며, **낙원**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한 존재가 솟아나서 실존하는데, 이 존재는 주권에서는 잠정적으로 종속적이지만, **행위**에서는 여러 면으로 가장 다재다능한 듯이 보인다. 그리고 행위에서 그런 명백한 우월성은, 심지어 물리적 인력보다--곧 **낙원 섬**이 우주에서 형태화되는 것보다-- 더 우월한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에서 드러난다.

물리적 에너지와 사물에 대한 이 초월통제 외에도, **무한한 영**은, 인내, 자비, 및 사랑의 속성을 훌륭히 부여받았는데, 이런 속성은 그의 영적 사역에서 아주 절묘하게 드러난다. **영**은, 사랑을 공급하기에, 그리고 자비로 정의를 완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 **영 하나님**은 **영원한 원본 아들**의 숭고한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 전체를 소유한다. 너희가 기원된 우주는, 정의라는 모루와 고난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만들어졌지만; 망치를 휘두르는 자들은, 자비의 자녀, 즉 **무한한 영**의 영 자손이다.

2. 편재하는 영

하나님은 삼중적 의미에서 영이신데:**하나님** 자신이 영이며;**아들** 안에서 조건 없는 영으로서 나타나며;**공동 행위자** 안에서는, 정신과 연합한 영으로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이 영적 실체들 외에, 우리는 체험 영 현상의 수준들--곧 **지존하신 분**, **궁극 신격**, 및 **신격 절대자**의 영들--을 식별한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영은,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보완존재인 것과 똑같이, **영원한 아들**의 보완존재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영화{靈化}됨으로 인격화된 분이며;**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과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화됨으로 영화{靈化}된 분이다.

유란시아 사람들을 **낙원**의 **신격**들과 직접 연결시키는, 속박되지 않은 영적 힘의 계통 및 초물질 능력의 근원이 많이 있다. **사고 조율사**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고, **영원한 아들**은 영적_인력의 광범한 영향을 받고, **공동 창조주**는 영적으로 현존한다. **아들**의 영{靈}과 **영**의 영 사이에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제3 인격자**는 영적으로 보살필 때, 정신과 영의 결합으로서 또는 오직 영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in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experiential Deities — God the Supreme and God the Ultimate.

9:1.7 (100.1) And herein is an infinite mystery: That the Infinite simultaneously revealed his infinity in the Son and as Paradise, and then there springs into existence a being equal to God in divinity, reflective of the Son's spiritual nature, and capable of activating the Paradise pattern, a being provisionally subordinate in sovereignty but in many ways apparently the most versatile in action. And such apparent superiority in action is disclosed in an attribut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ich is superior even to physical gravity — the universal manifestation of the Isle of Paradise.

9:1.8 (100.2) In addition to this supercontrol of energy and things physical, the Infinite Spirit is superbly endowed with those attributes of patience, mercy, and love which are so exquisitely revealed in his spiritual ministry. The Spirit is supremely competent to minister love and to overshadow justice with mercy. God the Spirit possesses all the supernal kindness and merciful affection of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The universe of your origin is being forged out between the anvil of justice and the hammer of suffering; but those who wield the hammer are the children of mercy, the spirit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2. THE OMNIPRESENT SPIRIT

9:2.1 (100.3) God is spirit in a threefold sense: He himself is spirit; in his Son he appears as spirit without qualification; in the Conjoint Actor, as spirit allied with mind. And in addition to these spiritual realities, we think we discern levels of experiential spirit phenomena — the spirits of the Supreme Being, Ultimate Deity, and Deity Absolute.

9:2.2 (100.4) The Infinite Spirit is just as much a complement of the Eternal Son as the Son is a comple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is a spiritualized personalization of the Father; the Infinite Spirit is a personalized spiritualization of the Eternal Son and the Universal Father.

9:2.3 (100.5) There are many untrammelled lines of spiritual force and sources of supermaterial power linking the people of Urantia directly with the Deities of Paradise. There exist the connec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direct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 widespread influence of the spiritual-gravity urge of the Eternal Son, and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Conjoint Creator. There is a difference in funct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Son and the spirit of the Spirit. The Third Person in his spiritual ministry may function as mind plus spirit or as spirit alone.

유란시아인은, 이 **낙원** 현존들 외에,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의 영적 영향과 활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데, 이 우주들에는, 목적이 참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신성{神性}이라는 이상과 최상의 완비라는 목표를 향해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인도할, 사랑하는 인격체들이 거의 끝없이 배열돼 있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이 현존하심을 안다--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의 현존을, 심지어 필사적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지방우주에서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거룩한 영**으로서 활동하는 이 신성한 영향력의 은혜를, 물질 피조물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조율사**, 즉 **만유의 아버지**의 비인격 현존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고양시키고 영화{靈化}시키는 이 신성한 영들은 모두 완전한 협동 속에서 조화롭게 활동한다. 그들은, 필사자를 상승시키고 완비{完備}에 도달하게 하는 계획을 영적으로 작동시킬 때, 하나처럼 일하신다.

3. 우주 조종자

낙원 섬은 물리적 인력의 근원 및 본질이며; 물리적인 온갖 우주 전체 안에서, 이 인력이 가장 **실제적**이고 영원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힘과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력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데, 이 힘과 에너지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자에게 위탁됐으며, 기능적으로 그와 관련돼 있다.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 놀라운 능력을--곧 **반인력**{反引力}을-- 지니고 있다. 이 능력은 **아버지**나 **아들**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3 근원**에 내재하는, 물질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이 역량은, 우주 관계의 특정한 단계에 대해 **공동 행위자**가 몸소 반응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독특한 이 속성은, **무한한 영**의 어떤 고등 인격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반인력은, 국지적 틀 안에서 인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힘 현존을 활동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반인력은 오직 물질 인력과 관련해 작동하며, 정신의 행위가 아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인력 저항 현상은 반인력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이지만, 반인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

공동 행위자는, 세력을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나타낸다. 그런 능력은, 물질화 되는 지점까지 에너지를 감속시킴으로써,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법으로 작용한다.

9:24 (100.6) In addition to these Paradise presences, Urantians benefit by the spiritual influences and activities of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with their almost endless array of loving personalities who ever lead the true of purpose and the honest of heart upward and inward towards the ideals of divinity and the goal of supreme perfection.

9:25 (100.7)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spirit of the Eternal Son we know — we can unmistakably recognize it.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even mortal man may know, for material creatures can actually experience the beneficence of this divine influence which functions as the Holy Spirit of local universe bestowal upon the races of mankind. Human beings can also in some degree become conscious of the Adjuster, the im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se divine spirits which work for man's uplifting and spiritualization all act in unison and in perfect co-operation. They are as one in the spiritual operation of the plans of mortal ascension and perfection attainment.

3. THE UNIVERSAL MANIPULATOR

9:31 (101.1) The Isle of Paradise is the source and substance of physical gravity; and that should be sufficient to inform you that gravity is one of the most *real* and eternally dependable things in the whole physical universe of universes. Gravity cannot be modified or annulled except by the forces and energies conjointly sponsored by the Father and the Son, which have been intrusted to, and are functionally associated with, the pers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32 (101.2) The Infinite Spirit possesses a unique and amazing power — *antigravity*. This power is not functionally (observably) present in either the Father or the Son. This ability to withstand the pull of material gravity, inherent in the Third Source, is revealed in the personal reactions of the Conjoint Actor to certain phases of universe relationships. And this unique attribute is transmissible to certain of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33 (101.3) Antigravity can annul gravity within a local frame; it does so by the exercise of equal force presence. It operates only with reference to material gravity, and it is not the action of mind. The gravity-resistant phenomenon of a gyroscope is a fair illustration of the *effect* of antigravity but of no value to illustrate the *cause* of antigravity.

9:34 (101.4) Still further does the Conjoint Actor display powers which can transcend force and neutralize energy. Such powers operate by slowing down energy to the point of materialization and by other techniques unknown to you.

공동 창조주는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의 근원도 아니고, 에너지의 종착점도 아니며; 에너지 조종자다. **공동 창조주**는 행동이다--즉 움직임, 변화, 변경, 협조, 안정, 및 평형이다. **낙원**의 직접 또는 간접 통제를 받는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제3 근원 및 중심**과, 그의 다중{多重} 대행기관들의 행동에 반응한다.

온갖 우주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동력을 통제하는 피조물, 즉: 물리 통제관,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규제와 안정에 관여해야만 되는 **행동의 하나님**의 기타 대리인들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갖는 독특한 이 피조물은 모두 반인력 같은 다양한 동력 통제 속성을 갖는데, 광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평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반인력을 활용한다.

행동의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 활동은 **낙원**에 자신의 기능을 결부시키는 듯하며, 정말로 능력 대행기관들은 모두 영원한 **섬**의 절대성을 존중하고, 심지어 거기에 의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공동 행위자**는 **낙원**을 위해 행동하거나 **낙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몸소 행동한다. **낙원**은 인격자가 아니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없는, 인격아닌, 그리고 기타 몸소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동 행위자** 자신의 자발적 행동이며; 어느 사물이나 누구에 대한 반응도, 파생물도, 반응도 아니다.

낙원은 무한성의 원형{原型}이며; **행동의 하나님**은 그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낙원**은 무한성의 물질적 지레받침이며; **제3 근원 및 중심**의 대행기관들은 지성을 지닌 지렛대인데, 이 지렛대는 물질 수준에 동기를 부여하고, 물리적으로 창조된 구조 속으로 자발성을 주입시킨다.

4. 절대 정신

제3 근원 및 중심에게는, 물리적 속성과 영적 속성과는 확연히 다른 지적 본성이 있다. 그런 본성을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은 아니더라도 지성적으로-- 연상할 수는 있다. 기능의 정신 수준에서, 이 본성은 **제3 인격자**의 물리적 속성 및 영적 성품과 구분되지만, 이 본성은 인격체가 식별할 만큼 물리적 또는 영적 형태화{形態化}와 별도로 작용하는 일은 전혀 없다.

절대 정신은 **제3 인격자**의 정신이며; **영 하나님**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정신은, 활동하는 존재들 안에서 에너지나 영 또는 둘 다로부터 분리돼 있지 않다. 정신은 에너지 안에 선천적으로 들

9:3.5 (101.5) The Conjoint Creator is not energy nor the source of energy nor the destiny of energy; he is the *manipulator* of energy. The Conjoint Creator is action — motion, change, modification, coordination, stabilization, and equilibrium. The energies subject to the direct or indirect control of Paradise are by nature responsive to the act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his manifold agencies.

9:3.6 (101.6)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permeated by the power-control creatur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physical controllers, power directors, power center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God of Action who have to do with the regulation and stabilization of physical energies. These unique creatures of physical function all possess varying attributes of power control, such as antigravity, which they utilize in their efforts to establish the physical equilibrium of the matter and energies of the grand universe.

9:3.7 (101.7) All these material activities of the God of Action appear to relate his function to the Isle of Paradise, and indeed the agencies of power are all regardful of, even dependent on, the absoluteness of the eternal Isle. But the Conjoint Actor does not act for, or in response to, Paradise. He acts, personally, for the Father and the Son. Paradise is not a person. The nonpersonal, impersonal, and otherwise not personal doing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all volitional acts of the Conjoint Actor himself; they are not reflections, derivations, or repercussions of anything or anybody.

9:3.8 (101.8) Paradise is the pattern of infinity; the God of Action is the activator of that pattern. Paradise is the material fulcrum of infinity; the agenc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the levers of intelligence which motivate the material level and inject spontaneity into the mechanism of the physical creation.

4. THE ABSOLUTE MIND

9:4.1 (102.1) There is an intellectual natur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at is distinct from his physical and spiritual attributes. Such a nature is hardly contactable, but it is associable — intellectually though not personally.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physical attributes and the spiritual character of the Third Person on mind levels of function, but to the discernment of personalities this nature never functions independently of physical or spiritual manifestations.

9:4.2 (102.2) The absolute mind is the mind of the Third Person; it is inseparable from the personality of God the Spirit. Mind, in functioning beings, is not separated from energy or spirit, or both. Mind is

어있지 않으며; 에너지는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정신에 대해 반응할 수 있으며; 정신은 에너지 위에 첨가될 수 있지만, 순전히 물질적인 수준에는 의식이 고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순수한 영에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아닌데, 영은 선천적으로 인식하고 식별하기 때문이다. 영은 항상 지성적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한다*. 영은 이런 정신 또는 저런 정신일 수 있고, 선{先}정신 또는 초월정신, 심지어 영 정신일 수 있지만, 생각하고 아는 것에 상당하는 일을 한다. 영의 통찰력은 정신의 의식을 초월하고, 이 의식의 결과로 일어나며, 이론적으로 이 의식보다 앞선다.

공동 창조주는 정신 영역, 즉 우주의 지성 범주에서만 절대적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은 무한하며; 온갖 우주의 활동적이고 기능 발휘하는 정신 회로들을 완전히 초월한다. 일곱 연방우주의 정신 자질은, **일곱 으뜸 영**, 즉 **공동 창조주**의 1차 인격체들로부터 파생된다. 이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광우주에 정신을 분배하며, 너희 지방우주는 시공우주 정신 가운데 **오르본톤** 유형의 **네바돈** 변종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한 정신은 시간을 무시하고, 궁극적 정신은 시간을 초월하며, 시공우주 정신은 시간에 좌우된다. 그리고 공간도 그러한다: **무한한 정신**은 공간과 무관하지만, 무한 세계로부터 정신 보조 수준으로 하강할 때, 지능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계를 점점 더 고려해야 한다.

시공우주 힘은 심지어 시공우주 정신이 영에 반응하듯이 정신에 반응한다. **영**은 신성한 목적이요, 영 정신은 실행하는 신성한 목적이다. 에너지는 사물이고, 정신은 의미이며, 영은 가치다. 정신은, 영원 속에서 상호 유사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에너지와 영 사이의 상대적 연관성을, 심지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수립한다.

정신은, 영의 가치기준을, 지능이 깨닫는 의미로 변형시키며; 자유의사는, 물질 분야와 영적 분야 모두에서 정신이 의미하는 것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낙원** 상승은, 영, 정신, 및 에너지의 상대적이고 구별되는 성장을 포함한다. 인격은 체험에 의거한 개체성의 이 요소들을 통합하는 무엇이다.

5. 정신의 사역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은 무한하다. 우주가 무한으로 성장하더라도, 그의 정신 잠재력은, 지능의 적절한 정신 및 다른 필요 조건을, 무수히 많은 피조물에게 증여하기에 여전히 충분할 것이다.

창조된 정신 범위 안에서, **제3 인격**자는 동격 및 하위 동역자들과 함께 최상으로 통치한다. 피

not inherent in energy; energy is receptive and responsive to mind; mind can be superimposed upon energy, but consciousness is not inherent in the purely material level. Mind does not have to be added to pure spirit, for spirit is innately conscious and identifying. Spirit is always intelligent, *minded* in some way. It may be this mind or that mind, it may be premind or supermind, even spirit mind, but it does the equivalent of thinking and knowing. The insight of spirit transcends, supervenes, and theoretically antedates the consciousness of mind.

9:4.3 (102.3) The Conjoint Creator is absolute only in the domain of mind, in the realms of universal intelligence. Th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it utterly transcends the active and functioning mind circu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mind endow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derived from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Conjoint Creator. These Master Spirits distribute mind to the grand universe as the cosmic mind, and your local universe is pervaded by the Nebadon variant of the Orvonton type of cosmic mind.

9:4.4 (102.4) Infinite mind ignores time, ultimate mind transcends time, cosmic mind is conditioned by time. And so with space: The Infinite Mind is independent of space, but as descent is made from the infinite to the adjutant levels of mind, intellect must increasingly reckon with the fact and limitations of space.

9:4.5 (102.5) Cosmic force responds to mind even as cosmic mind responds to spirit. Spirit is divine purpose, and spirit mind is divine purpose in action. Energy is thing, mind is meaning, spirit is value. Even in time and space, mind establishes those relative relationships between energy and spirit which are suggestive of mutual kinship in eternity.

9:4.6 (102.6) Mind transmutes the values of spirit into the meanings of intellect; volition has power to bring the meanings of mind to fruit in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domains. The Paradise ascent involves a relative and differential growth in spirit, mind, and energy. The personality is the unifier of these components of experiential individuality.

5. THE MINISTRY OF MIND

9:5.1 (102.7)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in mind. If the universe should grow to infinity, still his mind potential would be adequate to endow limitless numbers of creatures with suitable minds and other prerequisites of intellect.

9:5.2 (102.8) In the domain of *created mind* the Third Person, with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associates, rules supreme. The realms of

조물 정신 범주는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독자적으로 기원되며; 그는 정신을 증여하는 분이다. **무한한 영**의 정신 행위와 영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적당하게 준비되기 전에는, 심지어 **아버지**의 단편{斷片}도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정신의 독특한 특색은, 아주 광범한 생명체에게 증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그의 창조하는 동역자와 피조 동역자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을 돌본다. 그는 지방 우주 보조체들을 통해서, 인간 및 준인간{準人間} 지능을 돌보며, 물리 통제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살아있는 물체 가운데 가장 낮은, 체험하지 못하는 실체까지도 돌본다. 그리고 정신이 지도하는 것은, 항상 정신_영 또는 정신_에너지 인격체들의 사역이다.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가 정신의 근원이므로,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이 **영원한 아들** 또는 **만유의 아버지**보다 **무한한 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을 더 쉽게 형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공동 창조주** 실체는, 인간 정신이라는 바로 그 실존 안에서는 불완전하게 드러난다. **공동 창조주**는 시공우주 정신의 조상이며, 사람의 정신은 개인화 된 회로인데, **제3 근원 및 중심의 창조적 딸**이 지방우주에 증여하는 그 시공우주 정신 중에서 인격아닌 부분이다.

제3 인격자가 정신의 근원이라는 이유로, 정신의 모든 현상이 신성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 지능은 동물에서 기원된 인종들의 물질적 태생에 뿌리를 둔다. 물리적 자연계가 **낙원**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참 계시가 아닌 것처럼, 우주 지성은 정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 계시가 아니다. 완전성이 자연계에 있지만, 자연은 완전하지 않다. **공동 창조주**가 정신의 근원이지만, 정신은 **공동 창조주**가 아니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완전한 사고{思考} 본질과, 미성숙한 너희 인간 본성의 진화하는 정신상태 사이를 정신이 절충한다. 너희의 지적 진화를 위한 계획은 정말로 숭고하게 완전한 계획이지만, 너희가 육신의 장막 안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 신성한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정신은 정말로 신성한 기원을 가지며, 신성한 운명을 갖지만, 너희 필사 정신은 아직 신성한 존엄성에 속하지 않는다.

너무나 종종, 아주 너무나 종종, 너희는 자신의 정신을 위선으로 훼손시키고 불의로 상처를 입히며; 정신을 동물 같은 불안감에 굴복시키고, 무익한 근심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정신의 근원이 신성하더라도, 상승하는 너희 세계에서 너희가 아는 그런 정신은 큰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숭배나 경배의 대상은 더욱 될 수 없다. 미성숙하고 비활동적인 인간 지능의 목상은, 겸손한 반응 쪽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creature mind are of exclusiv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he is the bestower of mind. Even the Father fragments find it impossible to indwell the minds of men until the way has been properly prepared for them by the mind action and spiritual function of the Infinite Spirit.

9:5.3 (103.1) The unique feature of mind is that it can be bestowed upon such a wide range of life. Through his creative and creature associate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ministers to all minds on all spheres. He ministers to human and subhuman intellect through the adjutant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rough the agency of the physical controllers, ministers even to the lowest nonexperiencing entities of the most primitive types of living things. And always is the direction of mind a ministry of mind-spirit or mind-energy personalities.

9:5.4 (103.2) Since the Third Person of Deity is the source of mind,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evolutionary will creatures find it easier to form comprehensible concepts of the Infinite Spirit than they do of either the Eternal Son or the Universal Father. The reality of the Conjoint Creator is disclosed imperfectly in the very existence of human mind. The Conjoint Creator is the ancestor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d of man is an individualized circuit, an impersonal portion, of that cosmic mind as it is bestowed in a local universe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5.5 (103.3) Because the Third Person is the source of mind, do not presume to reckon that all phenomena of mind are divine. Human intellect is rooted in the material origin of the animal races. Universe intelligence is no more a true revelation of God who is mind than is physical nature a true revelation of the beauty and harmony of Paradise. Perfection is in nature, but nature is not perfect. The Conjoint Creator is the source of mind, but mind is not the Conjoint Creator.

9:5.6 (103.4) Mind, on Urantia, is a compromise between the essence of thought perfection and the evolving mentality of your immature human nature. The plan for your intellectual evolution is, indeed, one of sublime perfection, but you are far short of that divine goal as you function in the tabernacles of the flesh. Mind is truly of divine origin, and it does have a divine destiny, but your mortal minds are not yet of divine dignity.

9:5.7 (103.5) Too often, all too often, you mar your minds by insincerity and sear them with unrighteousness; you subject them to animal fear and distort them by useless anxiety. Therefore, though the source of mind is divine, mind as you know it on your world of ascension can hardly become the object of great admiration, much less of adoration or worship. The contemplation of the immature and inactive human intellect should lead

only to reactions of humility.

6. 정신_인력 회로

보편적 지성체인 **제3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창조계에서 각 정신, 각 지능을 친히 의식하며, 광범한 우주들에서,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정신을 부여받은 이 모든 피조물과 직접 완전한 접촉을 유지한다. 정신의 이 모든 활동은, **제3 근원 및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절대 정신_인력 회로에 붙잡혀 있으며, **무한한 영**이 친히 의식하는 일부분이 된다.

아버지가 모든 인격체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리고 **아들**이 모든 영적 실체를 끌어들이듯이, **공동 행위자** 역시 끌어당기는 능력을 모든 정신에게 행사하며; 우주의 정신 회로를 무조건 지배하고 통제한다. 모든 참되고 진실된 지적 가치, 즉 모든 신성한 사고{思考}와 완전한 개념은 반드시 정신의 이 절대 회로 안으로 이끌린다.

정신 인력은 물질적 및 영적 인력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이 물질적 및 영적 인력이 언제 어디서 부딪히든지, 정신 인력이 항상 작용한다. 셋 전체가 연합될 때, 인격 인력이 물질 피조물을--곧 물리적 또는 모론시아적 피조물, 유한 또는 유한절대 피조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비인격 존재들 안에서조차, 정신의 부여는 생각할 자격을 주며, 인격이 완전히 없음에도 의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격 존엄성을 가진 개성은, 인간적 이든지 신성하든지, 불멸하든지 잠재적으로 불멸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영이나 정신 또는 물질에서 기원되지 않으며;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물이다. 뿐만 아니라 영과 정신 그리고 물질 인력의 상호작용도, 인격 인력의 출현에 필요조건이 아니다. **아버지**의 회로는 영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정신_물질의 존재를 포함할 수 있고, 아니면 물질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정신_영의 존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인격 인력의 작동은 반드시 **만유의 아버지**의 자발적 행동이다.

정신은,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들 안에 연합되는 에너지이고, 순전히 영적인 인격체들 안에 연합되는 영인데, 인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격체 계층은, 에너지와 영 둘 다와 연합되는 정신을 소유한다. 피조물 정신의 영적 측면은,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끌어당김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며; 물질적 특색은 물질 우주의 인력 충동에 반응한다.

시공우주 정신은, 에너지 또는 영과 연합되지 않을 때에는, 물질 회로나 영적 회로의 인력 요구 사항에 종속되지 않는다. 순전한 정신은 오직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인력 지배에 대해서만 종속된

6. THE MIND-GRAVITY CIRCUIT

9:6.1 (103.6)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intelligence, is personally conscious of every *mind*, every intellect, in all creation, and he maintains a personal and perfect contact with all these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creatures of mind endowment in the far-flung universes. All these activities of mind are grasped in the absolute mind-gravity circuit which focalizes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is a part of the personal consciousness of the Infinite Spirit.

9:6.2 (103.7) Much as the Father draws all personality to himself, and as the Son attracts all spiritual reality, so does the Conjoint Actor exercise a drawing power on all minds; he unqualifiedly dominates and controls the universal mind circuit. All true and genuine intellectual values, all divine thoughts and perfect ideas, are unerringly drawn into this absolute circuit of mind.

9:6.3 (104.1) Mind gravity can operate independently of material and spiritual gravity, but wherever and whenever the latter two impinge, mind gravity always functions. When all three are associated, personality gravity may embrace the material creature — physical or morontial, finite or absonite. But irrespective of this, the endowment of mind even in impersonal beings qualifies them to think and endows them with consciousness despite the total absence of personality.

9:6.4 (104.2) Selfhood of personality dignity, human or divine, immortal or potentially immortal, does not however originate in either spirit, mind, or matter; it is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Neither is the interaction of spirit, mind, and material gravity a prerequisite to the appearance of personality gravity. The Father's circuit may embrace a mind-material being who is unresponsive to spirit gravity, or it may include a mind-spirit being who is unresponsive to material gravity. The operation of personality gravity is always a volitional act of the Universal Father.

9:6.5 (104.3) While mind is energy associated in purely material beings and spirit associated in purely spiritual personalities, innumerable orders of personality, including the human, possess minds that are associated with both energy and spirit. The spiritual aspects of creature mind unfailingly respond to the spirit-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the material features respond to the gravity urge of the material universe.

9:6.6 (104.4) Cosmic mind, when not associated with either energy or spirit, is subject to the gravity demands of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circuits. Pure mind is subject only to the universal gravity

다. 순전한 정신은 무한한 정신과 가까운 동류이고, (영 및 에너지 절대현상과 이론적으로 대등한) 무한한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법칙 자체다.

영_에너지 확산이 클수록,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도 더 커지며; 에너지와 영의 변화가 적을수록,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도 적어진다. 명백히, 시공우주 정신의 최대 기능이, 시한(時限)이 있는 공간 우주들에 있다. 여기서 정신이 에너지와 영 사이의 어떤 중간_지대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높은 수준의 정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낙원**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근본적으로 하나다.

정신_인력 회로는 신뢰할 만하며; **낙원**에 계신 **신격의 제3 인격자**로부터 나오지만,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 전체가 다 예측될 수는 없다. 알려진 창조 전반에 걸쳐서, 그의 기능이 예측될 수 없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존과 정신의 이 회로가 병행한다.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우주 절대자**의 기능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무엇이 그것을 작동시키는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기능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해서, 겨우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유한한 정신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국면들은 **지존하신 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며,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광대한 활동 지대가 있다. 알려지지 않은 정신에 관한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정신의 완전한 표현이며; **지존하신 분**은 **창조주**에 대한 모든 피조물 정신의 진화해가는 표현이다.

7. 우주 반사성

공동 행위자는, 정신적, 물질적, 및 영적 세계를 동시에 인식(認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주 실체성의 모든 수준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주 반사성(反射性)** 현상, 즉 그들이 어떤 연방우주 전체에 발산될 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리고 어떤 원하는 지점에서 반사성으로 이 정보와 지식 전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독특하고 불가해한 능력이다. 반사성 행위는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들 각각에서 완전하게 입증된다. 그것은 또한 연방우주들 전체 구역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지방우주들의 경계선(境界線) 안에서 작동한다. 반사성은 마지막으로 **낙원**에 초점을 맞춘다.

반사성 현상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 배치된 반사하는 인격체들의 놀라운 실행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창조에서 발견되는 모든 실존 국면에서

grasp of the Conjoint Actor. Pure mind is close of kin to infinite mind, and infinite mind (the theoretical co-ordinate of the absolutes of spirit and energy) is apparently a law in itself.

9:6.7 (104.5) The greater the spirit-energy divergence, the greater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the lesser the diversity of energy and spirit, the lesser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Apparently, the maximum function of the cosmic mind is in the time universes of space. Here mind seems to function in a mid-zone between energy and spirit, but this is not true of the higher levels of mind; on Paradise, energy and spirit are essentially one.

9:6.8 (104.6) The mind-gravity circuit is dependable; it emanates from the Third Person of Deity on Paradise, but not all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is predictable. Throughout all known creation there parallels this circuit of mind some little-understood presence whose function is not predictable. We believe that this unpredictability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function of the Universal Absolute. What this function is, we do not know; what actuates it, we can only conjecture; concerning its relation to creatures, we can only speculate.

9:6.9 (104.7) Certain phases of the unpredictability of finite mind may be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Being, and there is a vast zone of activities wherein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iversal Absolute may possibly be tangent. There is much about mind that is unknown, but of this we are sure: The Infinite Spirit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mind of the Creator to all creatures; the Supreme Being is the evolving expression of the minds of all creatures to their Creator.

7. UNIVERSE REFLECTIVITY

9:7.1 (105.1) The Conjoint Actor is able to co-ordinate all levels of universe actuality in such manner as to make possible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he mental,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is is the phenomenon of *universe reflectivity*, that unique and inexplicable power to see, hear, sense, and know all things as they transpire throughout a superuniverse, and to focalize, by reflectivity, all this information and knowledge at any desired point. The action of reflectivity is shown in perfection on each of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is also operative throughout all sectors of the superuniverses an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ocal universes. Reflectivity finally focalizes on Paradise.

9:7.2 (105.2) The phenomenon of reflectivity, as it is disclose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worlds in the amazing performances of the

가장 까다로운 상호연합을 나타낸다. 영{靈} 계통은 **아들**에게로, 물리적 에너지는 **낙원**으로, 정신은 **제3 근원**에게로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있지만; 우주 반사성의 비범한 현상에는 셋 전체의 어떤 독특한 예외적인 통합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의 상황을, 그런 상황이 발생됨과 동시에 우주 통치자들로 하여금 즉시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합해 있다.

우리는 반사성 기법 대부분을 납득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많은 국면이 있다.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정신 회로의 우주 중심이라는 것과, 시공우주 정신의 조상{祖上}이라는 것, 그리고 시공우주 정신이 **제3 근원 및 중심**의 절대 정신 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들이, 알려진 모든 실존의 지적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며; 이 회로들은 우주 공간 보고서를 수용하고, 확실히 **일곱 으뜸 영**에 초점을 맞추고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모인다.

유한한 시공우주 정신과 신성한 절대 정신 사이의 관계는, **지존자**의 체험 정신 안에서 진화하는 듯하다. 시간의 여명기에 **무한한 영**이 이 체험 정신을 **지존자**에게 증여했다고 배웠으며, 우리는 **지존자 정신**의 활동을 가정함으로써만 반사성 현상의 어떤 특색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지존자**가 반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공우주의 이 의식{意識}의 복잡한 처리사항과 정확한 운영을 어떻게 밝힐 도리가 없다.

반사성은 체험적 유한자의 제한조건 안에서 전지{全知}한 것처럼 보이며, **지존하신 분**의 현존_의식의 출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그 국면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반사성 활용은 **지존자**의 의식{意識}과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8. 무한한 영의 인격체

무한한 영은, 자신의 능력과 특권 중에서 많은 부분을 동격 및 하위 인격체와 대행기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소유한다.

무한한 영의 첫 **신격**_창조 행위는, **삼위일체**와는 별개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계시되지 않은 어떤 연합에서 작동함으로써,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실존 속에 인격화 됐는데, 이들은 **무한한 영**을 우주들에 분배하는 자다.

reflective personalities there stationed, represents the most complex interassociation of all phases of existence to be found in all creation. Lines of spirit can be traced back to the Son, physical energy to Paradise, and mind to the Third Source; but in the extraordinary phenomenon of universe reflectivity there is a unique and exceptional unification of all three, so associated as to enable the universe rulers to know about remote conditions instantaneously, simultaneously with their occurrence.

9:7.3 (105.3) Much of the technique of reflectivity we comprehend, but there are many phases which truly baffle us. We know that the Conjoint Actor is the universe center of the mind circuit, that he is the ancestor of the cosmic mind, and that cosmic mind operates under the dominance of the absolute mind grav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e know further that the circuits of the cosmic mind influence the intellectual levels of all known existence; they contain the universal space reports, and just as certainly they focu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onverge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7.4 (105.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ite cosmic mind and the divine absolute mind appears to be evolving in the experiential mind of the Supreme. We are taught that, in the dawn of time, this experiential mind was bestowed upon the Supreme by the Infinite Spirit, and we conjecture that certain features of the phenomenon of reflectivity can be accounted for only by postulating the activity of the Supreme Mind. If the Supreme is not concerned in reflectivity, we are at a loss to explain the intricate transactions and unerring operations of this consciousness of the cosmos.

9:7.5 (105.5) Reflectivity appears to be omnisci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experiential finite and may represent the emergence of the presence-consciousness of the Supreme Being. If this assumption is true, then the utilization of reflectivity in any of its phases is equivalent to partial contact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Supreme.

8.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8.1 (105.6) The Infinite Spirit possesses full power to transmit many of his powers and prerogatives to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personalities and agencies.

9:8.2 (105.7) The first Deity-creating act of the Infinite Spirit, functioning apart from the Trinity but in some unrevealed association with the Father and the Son, personalized in the exist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e distributors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universes.

연방우주 본부에는 **제3 근원 및 중심**을 직접 대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일곱 창조계 각각은, **낙원의 으뜸 영**들 가운데 하나에 의존하는데, 그는 연방우주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사하는 영**을 통해서 행동한다.

무한한 영이 그 다음에 계속하는 창조 행위는, 때때로 **창조적 영**들을 산출함에서 드러난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들**의 부모가 될 때마다, **무한한 영**이 지방우주 **창조적 영**의 조상이 되는데, **창조적 영**은 그 후에 겪는 모든 우주 체험에서, 그 **창조주 아들**의 가까운 동역자가 된다.

영원한 아들과 창조주 아들들 사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영**과 **창조주 아들**들의 지방우주 협조자인 **창조적 영**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창조에 대한 **무한한 영**의 관계는 지방우주에 대한 **창조적 영**의 관계와 같다.

물리적, 모른시아적, 및 영적 본성을 갖는 특정 회로 감독관들과 함께, 사역하는 영, 전달자, 선생, 재판관, 도우미, 및 자문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무리가, 광우주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을 대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존재들 모두가 인격체는 아니다. 다양한 유한_피조물의 인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주관적 자아_의식.

2.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대한 객관적 반응.

창조자 인격체들과 피조물 인격체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이 두 유형 외에,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들이 있는데, **무한한 영**에 대해 인격적이지만 피조 존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격적이지는 않은 존재다. 이 **제3 근원** 인격체들은 **아버지**의 인격 회로의 일부가 아니다. **제1 근원** 인격체 및 **제3 근원** 인격체는 상호 접촉이 가능하며; 모든 인격체가 접촉가능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인격을 증여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또한 우리는 **제3 근원**이 왜 **아버지** 이외{以外} 인격을 증여하는지 모르지만, **무한한 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아들**과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또한 **무한한 영**은 **제1 근원** 인격의 증여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제3 근원 인격체들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다. 어떤 동력 지휘자들 같은,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집단에게, **무한한 영**은 **제3 근원**

9:8.3 (106.1) There is no direct representativ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the headquarters of a superuniverse. Each of these seven creations is dependent on one of the Master Spirits of Paradise, who acts throug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situated at the capital of the superuniverse.

9:8.4 (106.2) The next and continuing creative act of the Infinite Spirit is disclosed, from time to time, in the production of the Creative Spirits. Every tim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become parent to a Creator Son, the Infinite Spirit becomes ancestor to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who becomes the close associate of that Creator Son in all subsequent universe experience.

9:8.5 (106.3) Just a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Eternal Son and the Creator Sons,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Creative Spirits, the local universe co-ordinates of the Creator Sons. What the Infinite Spirit is to the total creation, a Creative Spirit is to a local universe.

9:8.6 (106.4)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represented in the grand universe by a vast array of ministering spirits, messengers, teachers, adjudicators, helpers, and advisers, together with supervisors of certain circuits of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nature. Not all of these beings are personalities in the strict meaning of the term. Personality of the finite-creature variety is characterized by:

9:8.7 (106.5) 1. Subjective self-consciousness.

9:8.8 (106.6) 2. Objective response to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9:8.9 (106.7) There are creator personalities and creature personalities, and in addition to these two fundamental types there are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eings who are personal to the Infinite Spirit, but who are not unqualifiedly personal to creature beings. These Third Source personalities are not a part of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First Source personality and Third Source personality are mutually contactable; all personality is contactable.

9:8.10 (106.8) The Father bestows personality by his personal free will. Why he does so we can only conjecture; how he does so we do not know. Neither do we know why the Third Source bestows non-Father personality, but this the Infinite Spirit does in his own behalf, in creative conjunction with the Eternal Son and in numerous ways unknown to you. The Infinite Spirit can also act for the Father in the bestowal of First Source personality.

9:8.11 (106.9) There are numerous types of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e Infinite Spirit bestows Third Source personality upon numerous groups

원 인격을 증여하신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를 인격체로 간주하는데, **아버지의 회로화(回路化)된 피조물**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하는 **창조적 영**들이 그 예다.

제1 근원 및 **제3 근원** 인격체들은 모두, 사람이 인격 개념과 관련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부여받으며; 그들은, 기억, 이성, 판단, 창조적 상상력, 관념 조합, 결정, 선택, 그리고 필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지적{知的} 추가 능력을 포함하는 정신을 소유한다.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너희에게 계시된 계층들은 형체와 분명한 개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실재하는 존재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모든 계층의 영 실존의 눈에 보인다.

너희가 현재의 물질적 눈의 제한된 시야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것들의 실체에 대한 모론시아 형식의 확장된 감수성을 부여받자마자, 너희도 하위 계층의 영적 동역자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기능적 부류는, 본 문서들에서 계시된 것처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I}. **최상급 영**들. 다른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계층을 포함하는 복합 기원을 갖는 집단:

1. **낙원의 일곱 으뜸 영.**
2. **연방우주들의 반사하는 영.**
3. **지방우주들의 창조적 영.**

둘{II}. **동력 지휘자**들. 모든 조직된 공간에서 두루 활동하는, 통제하는 피조물 및 대행체 집단.

셋{III}.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의지를 지닌 피조물로서 독특함에도, 이 명칭은 이 존재들이 반드시 **제3 근원** 인격체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대개 세 주요 부류로 나뉜다:

1.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
2. **공간의 사자{使者} 무리.**
3.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

이 집단들은, **낙원**에서, 중앙 또는 거주{居住} 우주에서, 연방우주에서 봉사하며, 심지어 성좌들과 체계 그리고 행성에 이르기까지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는 계층들을 포함한다.

who are not included in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such as certain of the power directors. Likewise does the Infinite Spirit treat as personalities numerous groups of beings, such as the Creative Spirits, who are in a class by themselves in their relations to encircuited creatures of the Father.

9:8.12 (106.10) Both First Source and Third Source personalities are endowed with all and more than man associates with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ey have minds embracing memory, reason, judgment, creative imagination, idea association, decision, choice, and numerous additional powers of intellect wholly unknown to mortals. With few exceptions the orders revealed to you possess form and distinct individuality; they are real beings. A majority of them are visible to all orders of spirit existence.

9:8.13 (107.1) Even you will be able to see your spiritual associates of the lower orders as soon as you are delivered from the limited vision of your present material eyes and have been endowed with a morontia form with its enlarged sensitivity to the reality of spiritual things.

9:8.14 (107.2)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it is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falls into three great groups:

9:8.15 (107.3) I. *The Supreme Spirits*. A group of composite origin that embraces, among others, the following orders:

9:8.16 (107.4) 1.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9:8.17 (107.5) 2.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9:8.18 (107.6) 3.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9:8.19 (107.7) II. *The Power Directors*. A group of control creatures and agencies that function throughout all organized space.

9:8.20 (107.8) III.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is design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se beings are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ough some of them are unique as will creatures. They are usually grouped in three major classifications:

9:8.21 (107.9) 1.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8.22 (107.10) 2.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9:8.23 (107.11) 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9:8.24 (107.12) These groups serve on Paradise, in the central or residential universe, in the superuniverses, and they embrace orders that function in the local universes, even to the constellations, systems, and planets.

신성하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가족에 속하는 영 인격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모든 지성 피조물에게 베푸는 일에 언제까지나 전념한다. 이 영 존재들은 살아있는 사다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필사적 사람이 혼돈으로부터 영광을 향해 올라간다.

[**무한한 영**의 본성과 업무를 서술하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위임한,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유란시아**에 계시했음]

9:8.25 (107.13)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vast family of the Divine and Infinite Spirit are forever dedicated to the service of the ministry of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the Son to all the intelligent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se spirit beings constitute the living ladder whereby mortal man climbs from chaos to glory.

9:8.26 (107.14) [Revealed on Urantia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commissioned by the Ancients of Days to portray the nature and work of the Infinite Spirit.]

제10편. 낙원 삼위일체

⇨ 009

유랜시아 책

011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0편
낙원 삼위일체

섹션

소개

1. 제1 근원 및 중심의 자기_분배
2. 신격의 인격화
3. 신격의 세 인격자
4. 신격의 삼위일체 합동
5. 삼위일체의 기능
6. 삼위일체의 상비 아들
7. 지존성의 전면통제
8.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소개

영원한 **신격**들의 **낙원 삼위일체**는, **아버지**가 인격 절대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개인적 의지{意志}의 제한 없는 표현을, **신격**의 절대성과 완전하게 연합시킨다. **영원한 아들**, 그리고 신에게서 기원된 다양한 **아들**들은, 탁월성, 완전성, 무변성, 영원성, 보편성, 절대성, 및 무한성에 달리 내재된 제한 조건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해방되시도록, **공동 행위자** 및 그의 우주 자녀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준비한다.

신격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충분한 표현과 완전한 계시를, **낙원 삼위일체**가 효과적으로 마련한다.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신{神}의 응보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를 제공한다. **삼위일체**는 **신격**의 통일이며, 이 통일은 원래의 대등하고 공존하는 세 인격체,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나 되는 절대 기초에 영원히 의거한다.

영원성 궤도에서, 현재 상황으로부터 끝없는

PAPER 10

THE PARADISE TRINITY

SECTIONS

Introduction

1. Self-Distribu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2. Deity Personalization
3. The Three Persons of Deity
4. The Trinity Union of Deity
5. Functions of the Trinity
6.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7.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8. The Trinity Beyond the Finite

INTRODUCTION

10:0.1 (108.1) THE Paradise Trinity of eternal Deities facilitates the Father's escape from personality absolutism. The Trinity perfectly associates the limitless expression of God's infinite personal will with the absoluteness of Deity. The Eternal Son and the various Sons of divine origin, together with the Conjoint Actor and his universe children, effectively provide for the Father's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otherwise inherent in primacy, perfection, changelessness, eternity, universality, absoluteness, and infinity.

10:0.2 (108.2) The Paradise Trinity effectively provides for the full expression and perfect revelation of the eternal nature of Deity.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likewise afford a full and perfect revelation of divine justice. The Trinity is Deity unity, and this unity rests eternally upon the absolute foundations of the divine oneness of the three original and co-ordinate and coexistent personalitie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10:0.3 (108.3) From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circle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주 직무에서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낙원 삼위일체**가 그것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나는 온갖 우주 전체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필연적이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되돌아보거나 앞을 내다 볼 때, **삼위일체** 없이는 현재의 총괄우주를 생각할 수 없다. **낙원 삼위일체**만 계시면, 우리는 만사를 행하는 상호간의 방법 또는 심지어 복잡한 방법도 가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삼위일체** 없이는, **신격**의 절대적 하나 되심 앞에서, **무한자**가 어떻게 삼중성(三重性)인 동시에 동격의 인격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다른 창조 개념도, **삼위일체**의 기준, 즉 단일체인 **신격**에 내재된 절대성이 완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격**이 삼중으로 인격화하는 데 내재된 의지를 충분히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 제1 근원 및 중심의 자기_분배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자기_분배 원칙을 개시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의 사심(私心)없고 사랑하고 사랑스런 본성에는, 그가 중여하거나 위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발견한, 오직 그런 능력과 권위만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유보시키는 무엇이 내재돼 있다.

만유의 아버지는, 다른 어떤 **창조주**나 피조물에게든지 중여될 수 있었던, 자신의 온갖 부분을 처음부터 벗어던졌다. **아버지**는, 위임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신성한 **아들들** 및 그들과 관련된 지성체들에게 위임해 왔다. 그는, 양도될 수 있는 경영 권세의 모든 특권을, 각자의 우주에 있는 **주권자 아들들**에게, 실제로 양도해 왔다. 지방 우주 직무에서 그는, **영원한 아들**이 원본 중앙우주에서 완전하고 유능하며 권세 있음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창조주 아들** 각각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 **아버지**는 인격을 소유하는 위엄과 신성함에 맞춰서, 온갖 방법으로,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어떤 인격자에게나, 그리고 자신이 중앙에 거하는 우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속성들 전체, 즉 벗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배해 왔고 실제로 중여해 왔다.

신(神)의 인격은 자기_중심적이 아니며, 인격을 스스로_분배하고 공유하는 것은 신의 자발적 자아성의 특징이다. 피조물은 인격있는 다른 피조물과의 연합을 갈망하며, **창조주**들은 자신의 우주 자녀와 신성을 나누고 싶어 하며, **무한자**의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만유의 아버지**는 두 동격 인격체, 즉 **영원한 아들** 및 **공동**

of eternity, looking backward into the endless past, we can discover only one inescapable inevitability in universe affairs, and that is the Paradise Trinity. I deem the Trinity to have been inevitable. As I vie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ime, I consider nothing els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have been inevitable. The present master universe, viewed in retrospect or in prospect, is unthinkable without the Trinity. Given the Paradise Trinity, we can postulate alternate or even multiple ways of doing all things, but without the Trinity of Father, Son, and Spirit we are unable to conceive how the Infinite could achieve threefold and co-ordinate personalization in the face of the absolute oneness of Deity. No other concept of creation measures up to the Trinity standards of the completeness of the absoluteness inherent in Deity unity coupled with the repleteness of volitional liberation inherent in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1. SELF-DISTRIBU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1.1 (108:4) It would seem that the Father, back in eternity, inaugurated a policy of profound self-distribution. There is inherent in the selfless, loving, and lovabl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something which causes him to reserve to himself the exercise of only those powers and that authority which he apparently finds it impossible to delegate or to bestow.

10:1.2 (108:5) The Universal Father all along has divested himself of every part of himself that was bestowable on any other Creator or creature. He has delegated to his divine Sons and their associated intelligences every power and all authority that could be delegated. He has actually transferred to his Sovereign Sons,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every prerogativ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was transferable. In th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he has made each Sovereign Creator Son just as perfect, competent, and authoritative as is the Eternal Son in the original and central universe. He has given away, actually bestowed, with the dignity and sanctity of personality possession, all of himself and all of his attributes, everything he possibly could divest himself of, in every way, in every age, in every place, and to every person, and in every universe except that of his central indwelling.

10:1.3 (109:1) Divine personality is not self-centered; self-distribution and sharing of personality characterize divine freewill selfhood. Creatures crave association with other personal creatures; Creators are moved to share divinity with their universe children;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is disclosed as the Universal Father, who shares

행위자와, 존재의 실체성을 공유하고 자신과 동등함을 공유한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것인데, 왜냐하면 공동 창조 행위가 발효됐을 때,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가 인격체 실존으로 솟아나오고 자신의 신성한 부모에 대한 혼합된 개념을 실행했을 때, **아버지**는 조건 없는 인격체로서 존재하기를 끝냈기 때문이다. **공동 행위자**가 있게 되고 창조의 중앙 핵심이 물질화됨에 따라서, 확실한 변화, 영원한 변화가 발생했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체로서 자신을 **영원한 아들**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무한성의 인격”을 독생자 **아들**에게 증여한 반면, 두 분은 영원히 합동하는 “공동 인격”을 **무한한 영**에게 증여했다.

유한한 정신 개념을 벗어나는 이 이유 및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버지 인격을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 인격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 안에서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예외다.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필사자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여가, 신성한 인격의 본성과 성품 중에서 일부를 필사적 사람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행성 구면(球面)에 사는 피조물은, 이 **낙원 아들**들의 증여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한 확실하고 믿을만한 정보로 여겨야 한다.

2. 신격의 인격화

삼자일체되는 기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조건 없는 영 인격을 벗어버리시는데, 그 영 인격이 **아들**이시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하여 의지를 지닌 지성 피조물 중에서, 뒤이어 창조되거나 생겨나거나 또는 다른 인격화된 모든 유형의 신성한 **아버지**가 되기에 제한 없는 수용력을 소유하신다. **아버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인격체로서 오직 **아들**처럼, 그리고 **아들**과 함께 활동하실 수 있지만, 의지를 지닌 지성 피조물인,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무리에게 인격있는 **아버지**로서 인격을 계속 증여하며, 이 방대한 우주 자녀 가족 및 사랑하는 연합체와, 개인적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의 인격에 자신을 충만하게 증여하신 후에, 그리고 자신을 증여하는 이 행위가 완성되고 완전할 때, **아버지-아들** 합동에서 그

reality of being and equality of self with two co-ordinate personalities, the Eternal Son and the Conjoint Actor.

10:1.4 (109.2) For knowledge concerning the Father's personality and divine attributes we will always be dependent on the revelations of the Eternal Son, for when the conjoint act of creation was effected, when the Third Person of Deity sprang into personality existence and executed the combined concepts of his divine parents, the Father ceased to exist as the unqualified personality. With the coming into being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central core of creation, certain eternal changes took place. God gave himself as an absolute personality to his Eternal Son. Thus does the Father bestow the "personality of infinity" upon his only-begotten Son, while they both bestow the "conjoint personality" of their eternal union upon the Infinite Spirit.

10:1.5 (109.3) For these and other reasons beyond the concept of the finite mind,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human creature to comprehend God's infinite father-personality except as it is universally revealed in the Eternal Son and, with the Son, is universally active in the Infinite Spirit.

10:1.6 (109.4) Since the Paradise Sons of God visit the evolutionary worlds and sometimes even there dwel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since these bestowals make it possible for mortal man actually to know something of the nature and character of divine personality, therefore must the creatures of the planetary spheres look to the bestowals of these Paradise Sons for reliable and trustworthy information regard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2. DEITY PERSONALIZATION

10:2.1 (109.5)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the Father divests himself of that unqualified spirit personality which is the Son, but in so doing he constitutes himself the Father of this very Son and thereby possesses himself of unlimited capacity to become the divine Father of all subsequently created, eventuated, or other personalized type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s the *absolute and unqualified personality* the Father can function only as and with the Son, but as a *personal Father* he continues to bestow personality upon the diverse hosts of the differing level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nd he forever maintains personal relations of loving association with this vast family of universe children.

10:2.2 (109.6) After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the personality of his Son the fullness of himself, and when this act of self-bestowal is complete and perfect, of the infinite power and nature which are

게 현존하는 무한한 능력과 본성 중에서, 여전히 자신들과 비슷한 또 다른 존재를 구성하는 그 특성과 속성들을, 영원한 두 동반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 공동 인격, 즉 **신격**의 실존적 인격화를 **무한한 영**이 완성한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데 필수다. **영**은 **제2 인격자** 및 **제3 인격자**의 조합에 없어서는 안 된다. 세 인격자가 최소한의 사회 집단이지만,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필연성을 믿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_인격**, 즉 무제한의 근원 인격체이다. **영원한 아들**은, 무조건 **절대_인격**, 즉 인격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시간과 영원성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한한 영**은, **공동 인격체**, 즉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합동한 결과로 생긴 독특한 인격체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절대 인격을, 무한한 인격에서 뺀 것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은, 해방된 **아버지_인격**과 절대 **아들_인격**을 더한 것보다 더 큰 결과다.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독특한 인격자들이며; 아무도 중복되지 않으며; 각자 고유하며; 전체가 연합돼 있다.

영원한 아들은 홀로, 신성한 인격 관계의 충만함을 체험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심과 **영**의 아버지가심을 의식하고, 조상인 **아버지** 및 동역자인 **영**과 신으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식한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소유하는 체험을 알지만, **아버지**는 어떤 조상 선제자(先在者)도 없음을 아신다. **영원한 아들**은 아들신분의 체험, 즉 인격의 선조를 인식하며, 동시에 **아들**은 **무한한 영**에게 공동으로 어버이인 것을 의식한다. **무한한 영**은 이중적 인격 선조를 의식하지만, 동격의 어떤 **신격** 인격체에게도 어버이가 되지 않는다. **영**을 포함해서, **신격**으로 인격화되는 실존 순환과정이 완성되며; **제3 근원 및 중심**의 1차 인격체들은 체험적이고 그 수는 일곱이다.

나는 **낙원 삼위일체** 기원에 속한다. 나는 **삼위일체**를 통합된 **신격**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존재하고 분명한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집단을 이루어 업적을 조화시키고, 그리하여 결국 일곱 개의 다른 단수 및 복수 수용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 그리고 이 일곱 연합체가 그런 신성 조합을 위한 가능성을 다 소진했으

thus existent in the Father-Son union, the eternal partners conjointly bestow those qualitie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still another being like themselves; and this conjoint personality, the Infinite Spirit, completes the existential personalization of Deity.

10:2.3 (110.1) The Son is indispensable to the fatherhood of God. The Spirit is indispensable to the fraternity of the Second and Third Persons. Three persons are a minimum social group, but this is least of all the many reasons for believing in the inevitability of the Conjoint Actor.

10:2.4 (110.2)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infinite *father-personality*, the unlimited source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unqualified *personality-absolute*, that divine being who stands throughout all time and eternity as the perfect revelation of the personal nature of God. The Infinite Spirit is the *conjoint personality*, the unique personal consequence of the everlasting Father-Son union.

10:2.5 (110.3)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ersonality of infinity minus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he personal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the superadditive consequence of the union of the liberated Father-personality and the absolute Son-personality.

10:2.6 (110.4)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unique persons; none is a duplicate; each is original; all are united.

10:2.7 (110.5) The Eternal Son alone experiences the fullness of divine personality relationship, consciousness of both sonship with the Father and paternity to the Spirit and of divine equality with both Father-ancestor and Spirit-associate. The Father knows the experience of having a Son who is his equal, but the Father knows no ancestral antecedents. The Eternal Son has the experience of sonship, recognition of personality ance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Son is conscious of being joint parent to the Infinite Spirit. The Infinite Spirit is conscious of twofold personality ancestry but is not parental to a co-ordinate Deity personality. With the Spirit the existential cycle of Deity personalization attains completion;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experiential and are seven in number.

10:2.8 (110.6) I am of origin in the Paradise Trinity. I know the Trinity as unified Deity; I also know that the Father, Son, and Spirit exist and act in their definite personal capacities. I positively know that they not only act personally and collectively, but that they also co-ordinate their performances in various groupings, so that in the end they function in seven different singular and plural capacities. And since these seven associations exhaust the

므로, 가치, 의미, 및 인격 면에서 우주 실체들이 일곱 변종(變種)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3. 신격의 세 인격자

오직 한 분의 **신격**만 존재함에도, **신격**의 세 가지 긍정적이고 신성한 인격화가 존재한다. 신성한 **조율사**를 사람에게 부여한 것에 관하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했다. 복수(複數) **신격**의 행위와 행동에 대한 이 언급이 **유란시아**의 작품에 두루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세 **근원 및 중심**이 실존하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아봤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삼위일체 연합에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에 대한 동일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들이 영원성에서 그리고 **신격**들로서 틀림없이 행동하지만, 때에 맞춰서 그리고 인격체들로서 매우 다양한 본성의 관계를 확실히 드러낸다. **낙원**에서 우주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들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공간 범위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신성한 **아들**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의 자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말씀하고, **무한한 영**을 통해서 행동하며, 한편 모든 우주 활동에서는 **아들**과 **영**이 절묘하게 우에 있는데, 영광을 받고 신성하게 존경받는 공통된 **아버지**를 위해, 동등한 두 형제로서 경외심과 사랑으로 일한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본성에서 분명하게 동일하고, 존재함에서 조화를 이루지만, 우주 활동에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홀로 행동할 때에는, **신격**의 각 인격자가 절대성에서 제한되는 것 같다.

아들과 **영**을 구성하는 인격, 능력, 및 속성들을 **만유의 아버지**께서 자아_의지로 벗겨내시기 전에, **만유의 아버지**는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이 제외된 그런 이론적 **제1 근원 및 중심**은, 어떤 말의 의미로든지 **만유의 아버지**로 간주될 수 없으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들신분 없이는 실제적이지 않다. 더욱이, 총체적 의미에서 절대적이어야만 했던 **아버지**는, 영원히 오래 전 어떤 순간에 홀로 존재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외롭게 실존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아들**과 **영** 두 분 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신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항상 **원본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며,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영원한 선조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possibilities for such divinity combin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 realities of the universe shall appear in seven variations of values, meanings, and personality.

3. THE THREE PERSONS OF DEITY

10:3.1 (110.7) Notwithstanding there is only one Deity, there are three positive and divine personalizations of Deity. Regarding the endowment of man with the divine Adjusters, the Father said: “Let us make mortal man in our own image.” Repeatedly throughout the Urantian writings there occurs this reference to the acts and doings of plural Deity, clearly showing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and working of the three Sources and Centers.

10:3.2 (110.8) We are taught that the Son and the Spirit sustain the same and equal relations to the Father in the Trinity association. In eternity and as Deities they undoubtedly do, but in time and as personalities they certainly disclose relationships of a very diverse nature. Looking from Paradise out on the universes, these relationships do seem to be very similar, but when viewed from the domains of space, they appear to be quite different.

10:3.3 (111.1) The divine Sons are indeed the “Word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Spirit are truly the “Act of God.” God speaks through the Son and, with the Son, acts through the Infinite Spirit, while in all universe activities the Son and the Spirit are exquisitely fraternal, working as two equal brothers with admiration and love for an honored and divinely respected common Father.

10:3.4 (111.2)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certainly equal in nature, co-ordinate in being, but there are unmistakable differences in their universe performances, and when acting alone, each person of Deity is apparently limited in absoluteness.

10:3.5 (111.3) The Universal Father, prior to his self-willed divestment of the personality, power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the Son and the Spirit, seems to have been (philosophically considered) an unqualified, absolute, and infinite Deity. But such a theoretical First Source and Center without a Son could not in any sense of the word be considered the *Universal Father*; fatherhood is not real without sonship. Furthermore, the Father, to have been absolute in a total sense, must have existed at some eternally distant moment alone. But he never had such a solitary existence; the Son and the Spirit are both coeternal with the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s always been, and will forever be,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and, with the Son, the eternal progenitor of the Infinite Spirit.

절대로 아버지이신 것과 절대적 자유의사를 제외하고, 절대성을 직접 형태화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벗어버리셨음을 우리는 목격한다. 자유의사가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오직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벗어버리지 않으셨음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지의 무한성은, **제1 근원 및 중심**에 영원히 내재돼 왔음이 분명하다.

인격의 절대성을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 절대성이라는 족쇄에서 탈피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절대 인격으로서 홀로 행동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공존하는 **신격**--곧 **공동 행위자**--의 최종 인격화와 함께, 절대성 안에서 **신격** 역할의 전체성과 관련된, 신성한 세 인격체의 결정적인 삼자일체 상호의존성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인격체의 **아버지 절대자**이다. **아버지**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이지만,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전체 **신격**으로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하보나** 바깥의 경이로운 우주들에서 다음과 같이 작용하신다:

1. 창조자로서, 손자인 **창조주 아들**들을 통해서.
2. 통제관으로서, **낙원**의 인력 중심을 통해서.
3. 영으로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4. 정신으로서, **공동 창조주**를 통해서.
5. **아버지**로서, 자신의 인격 회로를 통하여, 부모로서 모든 피조물과 접촉을 유지하신다.
6. 인격자로서, 창조 전반에 걸쳐, 자신의 독립적 단편(斷片)들로--곧 필사적 사람 안에서 **사고 조율사**로-- 직접 행동하신다.
7. 전체(全體) **신격**으로서, 오직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작용하신다.

만유의 아버지가 관할권을 이렇게 모두 양도하고 위임하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스스로 떠맡은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주 권세의 이런 제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취하신다.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단편을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인격이전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영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은, 물질 피조물의 지적 활

10:3.6 (111.4) We observe that the Father has divested himself of all direct manifestations of absoluteness except absolute fatherhood and absolute volition. We do not know whether volition is an inalienable attribute of the Father; we can only observe that he did *not* divest himself of volition. Such infinity of will must have been eternally inherent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3.7 (111.5) In bestowing absoluteness of personality upon the Eternal Son, the Universal Father escapes from the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but in so doing he takes a step which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him to act alone as the personality-absolute. And with the final personalization of coexistent Deity — the Conjoint Actor — there ensues the critical trinitarian interdependence of the three divine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the totality of Deity function in absolute.

10:3.8 (111.6) God is the Father-Absolute of all personalitie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Father is personally absolute in liberty of action, but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made, in the making, and yet to be made, the Father is not discernibly absolute as total Deity except in the Paradise Trinity.

10:3.9 (111.7)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unctions outside of Havona in the phenomenal universes as follows:

- 10:3.10 (111.8) 1. As creator, through the Creator Sons, his grandsons.
- 10:3.11 (111.9) 2. As controller, through the gravity center of Paradise.
- 10:3.12 (111.10) 3. As spirit, through the Eternal Son.
- 10:3.13 (111.11) 4. As mind, through the Conjoint Creator.
- 10:3.14 (111.12) 5. As a Father, he maintains parental contact with all creatures through his personality circuit.

10:3.15 (111.13) 6. As a person, he acts *directly* throughout creation by his exclusive fragments — in mortal man by the Thought Adjusters.

10:3.16 (111.14) 7. As total Deity, he functions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10:3.17 (112.1) All these relinquishments and delegations of jurisdiction by the Universal Father are wholly voluntary and self-imposed. The all-powerful Father purposefully assumes these limitations of universe authority.

10:3.18 (112.2) The Eternal Son seems to function as one with the Father in all spiritual respects except in the bestowals of the God fragments and in other prepersonal activities. Neither is the So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material

동뿐 아니라, 물질 우주의 에너지 활동과도 긴밀하게 관여하지 않는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들**은 인격자로서 영적 우주 범위에서만 활동한다.

무한한 영은, 자신의 모든 운영에서 놀라운 정도로 보편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그는 정신, 물질, 및 영 세계들에서 활약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_아들**의 연합을 대표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작용한다. 그는 물리적 인력과, 영적 인력과, 또는 인격 회로와 직접 관계되지 않지만, 다른 우주 활동 전체에 다소 참여한다. **무한한 영**은, 외견상 세 실존 및 절대 인력 통제에 의존하는 듯하며, 한편 세 초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 재능은 절대성의 초월궁극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1차 힘과 에너지의 형태화조차 초월하고 겉으로 보기에 무효화시키는 여러 방법에 포함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초월통제권은 시공우주 실체의 원초적 형태화까지도 절대로 초월한다.

creatures nor with the energy activities of the material universes. As absolute the Son functions as a person and only in the domain of the spiritual universe.

10:3.19 (112.3) The Infinite Spirit is amazingly universal and unbelievably versatile in all his operations. He performs in the spheres of mind, matter, and spirit. The Conjoint Actor represents the Father-Son association, but he also functions as himself. He is not directly concerned with physical gravity, with spiritual gravity, or with the personality circuit, but he more or less participates in all other universe activities. While apparently dependent on three existential and absolute gravity controls, the Infinite Spirit appears to exercise three supercontrols. This threefold endowment is employed in many ways to transcend and seemingly to neutralize even the manifestations of primary forces and energies, right up to the superultimate borders of absoluteness. In certain situations these supercontrols absolutely transcend even the primal manifestations of cosmic reality.

4. 신격의 삼위일체 합동

모든 절대 연합체 중에서, **낙원 삼위일체**(곧 첫 삼중체)는 인격있는 **신격**의 독자적 연합체로서 독특하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지만, 오직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만, 그리고 우주 전체성에 관해서만 절대 **신격**으로서 활동하신다.

영원한 신격은 완전히 통합돼 있으며; 그럼에도 **신격**의 완전히 개별화된 세 인격자가 존재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제1 근원 및 중심**과 그의 영원한 협조자들이 갖는 성품 특징 및 무한한 권능의 온갖 다양성, 그리고 나뉘지 않은 **신격**의 우주 기능들의 신성한 통일성을, 모두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삼위일체는, 인격없는 역할로 작용하지만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작용하는, 무한한 인격자들의 연합체다. 미숙한 예증{例證}이지만, 인격없는 법인체{法人體}, 그럼에도 각자의 개인 의지에 지배되는 법인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낙원 삼위일체는 **실재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격** 합동으로 실존하지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영**, 또는 세 분 가운데 어느 두 분이든지, 이 동일한 **낙원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삼위일체**가 아닌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지만, 세 **신격**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인격자들로서, 세 분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협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4. THE TRINITY UNION OF DEITY

10:4.1 (112.4) Of all absolute associations, the Paradise Trinity (the first triunity) is unique as an exclusive association of personal Deity. God functions as God only in relation to God and to those who can know God, but as absolute Deity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and in relation to universe totality.

10:4.2 (112.5) Eternal Deity is perfectly unified;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perfectly individualized persons of Deity. The Paradise Trinity makes possible the simultaneous expression of all the diversity of the character traits and infinite power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his eternal co-ordinates and of all the divine unity of the universe functions of undivided Deity.

10:4.3 (112.6) The Trinity is an association of infinite persons functioning in a nonpersonal capacity but not in contravention of personality. The illustration is crude, but a father, son, and grandson could form a corporate entity which would be nonpersonal but nonetheless subject to their personal wills.

10:4.4 (112.7) The Paradise Trinity is *real*. It exists as the Deity union of Father, Son, and Spirit; yet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or any two of them, can function in relation to this selfsame Paradise Trin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can collaborate in a non-Trinity manner, but not as three Deities. As persons they can collaborate as they choose, but that is not the Trinity.

무한한 영이 행하는 일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그리고 **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함은 무익할 것인데:이 신비는 한 분으로서 세 분인 동시에 한 분 안에 계시는 세 분인 것, 그리고 두 분으로서 한 분인 동시에 두 분을 대행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전체 우주 직무에 대단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고립된 시공우주 사건 또는 인격 관계든지 그 전체성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삼위일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삼위일체**는 시공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작용하고, 필사적 사람은 유한 수준에 제한돼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유한한 **삼위일체** 개념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한 필사자로서, 너희 각자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리고 너희의 정신과 혼의 반응과 조화를 이루면서 **삼위일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삼위일체**의 절대성을 매우 조금 알 수 있지만, 너희가 **낙원**을 향해 상승할 때, 절대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삼위일체** 지존성과 궁극성에 대한 계속되는 계시와 예상치 못한 발견 앞에서, 여러 차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5. 삼위일체의 기능

인격 있는 **신격**들은 속성을 갖지만, **삼위일체**가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성한 존재들의 이 연합체는 응보의 집행, 전체의 입장, 협조 행위, 그리고 시공우주 전면통제 등과 같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함이 더 적당하다. 이 기능들은 인격 가치를 지닌 모든 생생한 실체가 고려되는 한, 능동적으로 최상이고, 궁극적이고, (**신격**의 한계 내에서) 절대적이다.

낙원 삼위일체의 기능은, 단순히 외견상 **아버지**가 부여한 신성에, **아들**과 **영**의 인격 있는 실존에 독특하게 있는 전문화된 속성을 더한 합계가 아니다. 세 **낙원 신격**의 **삼위일체** 연합체는, 보편적 계시와 행위와 경영을 위한, 새로운 의미, 가치, 능력, 및 수용력이 진화하고, 결말에 이르고, 신격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살아있는 연합체, 인간 가족, 사회 집단, 또는 **낙원 삼위일체**는, 단순한 산술적{算術的} 합산으로 증대되지 않는다. 집단의 잠재력은, 구성원 개인들의 속성의 단순한 합계를 항상 훨씬 뛰어넘는다.

삼위일체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전체 우주에 대해, **삼위일체**로서 독특한 입장을 유지한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기능은, **삼위일체**가 우주를 대하는 입장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런 입장은 모든 고립된 상황 또는 사건에 관해 동시적이며 복합적일 것이다:

10:4.5 (112.8) Ever remember that what the Infinite Spirit does is the function of the Conjoint Actor. Both the Father and the Son are functioning in and through and as him. But it would be futile to attempt to elucidate the Trinity mystery: three as one and in one, and one as two and acting for two.

10:4.6 (112.9) The Trinity is so related to total universe affairs that it must be reckoned with in our attempts to explain the totality of any isolated cosmic event or personality relationship. The Trinity functions on all levels of the cosmos, and mortal man is limited to the finite level; therefore must man be content with a finite concept of the Trinity as the Trinity.

10:4.7 (113.1) As a mortal in the flesh you should view the Trinity in accordance with your individual enlightenment and in harmony with the reactions of your mind and soul. You can know very little of the absoluteness of the Trinity, but as you ascend Paradiseward, you will many times experience astonishment at successive revelations and unexpected discoveries of Trinity supremacy and ultimacy, if not of absoluteness.

5. FUNCTIONS OF THE TRINITY

10:5.1 (113.2) The personal Deities have attributes, but it is hardly consistent to speak of the Trinity as having attributes. This association of divine beings may more properly be regarded as having *functions*, such as justice administration, totality attitudes, co-ordinate action, and cosmic overcontrol. These functions are actively supreme, ultimate, and (within the limits of Deity) absolute as far as all living realities of personality value are concerned.

10:5.2 (113.3) The fun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simply the sum of the Father's apparent endowment of divinity plus those specialized attributes that are unique in the personal existence of the Son and the Spirit. The Trinity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results in the evolution, eventuation, and deitization of new meanings, values, powers, and capacities for universal revelation, action, and administration. Living associations, human families, social groups, or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augmented by mere arithmetical summation. The group potential is always far in excess of the simp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component individuals.

10:5.3 (113.4) The Trinity maintains a unique attitude as the Trinity towards the entire univers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can be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universe attitudes of the Trinity. Such attitudes are simultaneous and may be multiple concerning any

1. **유한자**를 향한 **입장**. **삼위일체**가 최대한 자체를 제한함이 유한세계를 향한 입장이다. **삼위일체**는 인격자가 아니며, 또한 **지존하신 분**은 **삼위일체**의 유일한 인격화도 아니지만, 유한한 피조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권능있는 인격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데는 **지존자**가 최선의 길이다. 따라서, 유한세계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를, 때로는 **지존성 삼위일체**라고 일컫는다.

2. **유한절대자**를 향한 **입장**. **낙원 삼위일체**는, 유한보다는 높지만 절대보다는 낮은 실존 수준을 존중하며, 때로는 이 관계를 **궁극 삼위일체**라고 일컫는다. **궁극자**뿐 아니라 **지존자**도, **낙원 삼위일체**를 충분히 대표하지 않지만, 제한된 의미에서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대해서, 체험적 권능이 성장하는 인격이전 시대들 동안, 두 분은 각자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3. **낙원 삼위일체**의 **절대적 입장**은 절대 실존들과 관련되며, 전체 **신격**의 행위에서 극에 달한다.

삼위일체 무한자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모든 삼중성 관계의 협조 행위를--곧 신격화된 것뿐 아니라 비신격화된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인격체들이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무한한 존재로 고려할 때, 일곱 삼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을 피할 수 있고, 어떤 모순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진리 및 영원한 의미, 그리고 무한히 완전한 세 분의 끝없는 상호연합체의 본성을, 제한된 인간 정신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6. 삼위일체의 상비 아들

모든 법칙은 **제1 근원 및 중심**에서 기원되며; **그가 곧 법칙이다**. 영적 법칙의 집행은 **제2 근원 및 중심**에 부여돼 있다. 법칙의 계시, 즉 신성한 법령에 대한 공표와 해석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역할이다. 법칙의 적용, 즉 응보는 **낙원 삼위일체**의 범위에 해당하며, **삼위일체**의 어떤 **아들**들이 이를 수행한다.

응보는 **낙원 삼위일체**의 보편적 주권에 내재하지만, 선{善}, 자비, 및 진리는 신성한 인격체들의 우주 사역인데, 그의 **신격** 함동이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응보는 **아버지나 아들** 또는 **영**의 입장

isolated situation or event:

10:5.4 (113.5) 1.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maximum self-limitation of the Trinity is its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Trinity is not a person, nor is the Supreme Being an exclusive personalization of the Trinity, but the Supreme is the nearest approach to a power-personality focalization of the Trinity which can be comprehended by finite creatures. Hence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is sometimes spoken of as the Trinity of Supremacy.

10:5.5 (113.6) 2. *Attitude toward the Absonite.* The Paradise Trinity has regard for those levels of existence which are more than finite but less than absolute, and this relationship is sometimes denominated the Trinity of Ultimacy. Neither the Ultimate nor the Supreme are who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n a qualified sense and to their respective levels, each seems to represent the Trinity during the prepersonal eras of experiential-power development.

10:5.6 (113.7) 3. *The Absolut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is in relation to absolute existences and culminates in the action of total Deity.

10:5.7 (113.8) The Trinity Infinite involves the co-ordinate action of all triunity relationship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undeified as well as deified — and hence is very difficult for personalities to grasp. In the contemplation of the Trinity as infinite, do not ignore the seven triunities; thereby certain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may be avoided, and certain paradoxes may be partially resolved.

10:5.8 (114.1) But I do not command language which would enable me to convey to the limited human mind the full truth and the eternal significa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nature of the never-ending interassociation of the three beings of infinite perfection.

6.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10:6.1 (114.2) All law takes origin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e is law*. The administration of spiritual law inheres i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revelation of law, the promulg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statutes, is the func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application of law, justice, falls within the provi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s carried out by certain Sons of the Trinity.

10:6.2 (114.3) *Justice* is inherent in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the Paradise Trinity, but goodness, mercy, and truth are the universe ministry of the divine personalities, whose Deity union constitutes

이 아니다. 응보는, 사랑, 자비, 및 섬김에 대한 이 인격체들의 **삼위일체** 입장이다. **낙원 신격**들 가운데 아무도 응보의 집행을 담당하지 않는다. 응보는 결코 개인 입장이 아니며; 항상 복수{複數} 기능이다.

증거는, 공평성(자비와 조화된 응보)의 기초인데, 전체 창조계의 지성 존재들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공동으로 대표하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들이 증거를 제공한다.

심판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응보를 최종으로 적용한 것인데,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위일체** 본성을 갖는 존재인,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의 작품이다.

삼위일체 아들들의 이 집단은 다음 인격체를 포함한다: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
2. **영원 항존자**{恒存者}들.
3. **태고 항존자들**.
4. **완성 항존자들**.
5. **최근 항존자들**.
6. **합동 항존자들**.
7. **충실 항존자들**.
8. **지혜 완성자들**.
9. **신성한 조언자들**.
10. **우주 검열관**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작용하는 세 **낙원 신격**의 자녀인데, **우주 검열관**인 이 집단의 열째 계층에 내가 우연히 속하기 때문이다. 이 계층들은, 보편적 의미에서는 **삼위일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행정적 심판--곧 응보--의 범위 안에서만 **신격**의 이 집단 입장을 대표한다. 그들은 자신이 배정된 명확한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특별하게 고안했으며, 자신이 인격화 된 목적에 해당하는 그 기능에서만 **삼위일체**를 대변한다.

태고 항존자들 및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그 동역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최상의 공평성을 갖는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 중앙우주에서는 그런 기능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거기서 공평성은 완전성 안에서 스스로_명백하고, **하보나**의 완전성이 모든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한다.

응보는 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견해이며;자비는 의로움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비는

the Trinity. Justice is not the attitude of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Justice is the Trinity attitude of these personalities of love, mercy, and ministry. No one of the Paradise Deities foster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stice is never a personal attitude; it is always a plural function.

10:6.3 (114.4) *Evidence*, the basis of fairness (justice in harmony with mercy), is suppli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conjoint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and the Son to all realms and to the minds of the intelligent beings of all creation.

10:6.4 (114.5) *Judgment*, the final application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s the work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beings partaking of the Trinity nature of the united Father, Son, and Spirit.

10:6.5 (114.6) This group of Trinity Sons embraces the following personalities:

10:6.6 (114.7)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10:6.7 (114.8) 2. Eternals of Days.

10:6.8 (114.9) 3. Ancients of Days.

10:6.9 (114.10) 4. Perfections of Days.

10:6.10 (114.11) 5. Recents of Days.

10:6.11 (114.12) 6. Unions of Days.

10:6.12 (114.13) 7. Faithfuls of Days.

10:6.13 (114.14) 8. Perfectioners of Wisdom.

10:6.14 (114.15) 9. Divine Counselors.

10:6.15 (114.16) 10. Universal Censors.

10:6.16 (114.17) We are the childre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functioning as the Trinity, for I chance to belong to the tenth order of this group, the Universal Censors. These order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attitude of the Trinity in a universal sense; they represent this collective attitude of Deity only in the domains of executive judgment — justice. They were specifically designed by the Trinity for the precise work to which they are assigned, and they represent the Trinity only in those functions for which they were personalized.

10:6.17 (115.1)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Trinity-origin associates mete out the just judgment of supreme fairness to the seven superuniverses. In the central universe such functions exist in theory only; there fairness is self-evident in perfection, and Havona perfection precludes all possibility of disharmony.

10:6.18 (115.2) Justice is the collective thought of righteousness; mercy is its personal expression.

사랑의 태도이며; 정확성은 법 시행의 특징이며; 신성한 심판은 공정성의 핵심인데, **삼위일체**의 응보에 항상 순응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항상 충족시킨다. 온전히 인식되고 충분히 감지됐을 때, **삼위일체**의 의로운 응보와 **만유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의 응보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람이 보다시피, 사랑과 율법의 사역을 시간세계의 체험적 우주들에 조화시키기 위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인격체들이 조율된다.

7. 지존성의 전면통제

신격의 제1, 제2, 및 제3 인격자는 서로 대등하며, 세 분은 하나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영원한 **신격**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서는, 목적이 완전하고 실행이 일치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정말로 신성하게 하나다. 어떤 진리에는 이것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유한 수준에서 사물이 필사자에게 나타날 때, **낙원 삼위일체**는 **지존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오직 전체에--곧 전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연방우주, 전체 광우주에--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런 전체성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신격**의 총합이기 때문이고, 기타 여러 이유 때문이다.

지존하신 분은 유한한 우주들에서 작용하는 **삼위일체**보다는 낮고, 어딘가 다른 어떤 존재지만, 어떤 제한 속에서, 그리고 능력의 인격화가 완성되지 않은 현 시대 동안, 진화하는 이 **신격**은 **지존성 삼위일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출현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친히 **지존하신 분**과 함께 활동하지는 않지만, 현 우주 시대 동안 **삼위일체**로서 **지존하신 분**과 협력한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자**에 대해 비슷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존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진화를 마칠 때, 그와 **낙원 신격**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종종 추측해 보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존성에 대한 전면통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발전적 미완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듯한데, 분명히 **지존자**의 미완성, 즉 **낙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존자**가 나타내는 유한한 반응이 미숙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식이다.

필사 정신은 수많은 것을--곧 비극적인 물리적 사건, 무시무시한 사고, 무서운 재난, 고통스런 질병,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을--즉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재앙이, **지존하신 분**의 기능 발휘라고 예상되는 미지의 책략과 상호 연관되는지 아닌

Mercy is the attitude of love; precision characterizes the operation of law; divine judgment is the soul of fairness, ever conforming to the justice of the Trinity, ever fulfilling the divine love of God. When fully perceived and completely understood, the righteous justice of the Trinity and the merciful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are coincident. But man has no such full understanding of divine justice. Thus in the Trinity, as man would view it, the personalities of Father, Son, and Spirit are adjusted to co-ordinate ministry of love and law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of time.

7.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10:7.1 (115.3)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sons of Deity are equal to each other, and they are one. “The Lord our God is one God.” There is perfection of purpose and oneness of execution in the divine Trinity of eternal Deities. The Father, the Son, and the Conjoint Actor are truly and divinely one. Of a truth it is written: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nd beside me there is no God.”

10:7.2 (115.4) As things appear to the mortal on the finite level, the Paradise Trinity, like the Supreme Being, is concerned only with the total — total planet, total universe, total superuniverse, total grand universe. This totality attitude exists because the Trinity is the total of Deity and for many other reasons.

10:7.3 (115.5) The Supreme Being is something less and something other than the Trinity functioning in the finite universes; but within certain limits and during the present era of incomplete power-personalization, this evolutionary Deity does appear to reflect the attitude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he Father, Son, and Spirit do not personally function with the Supreme Being, but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y collaborate with him as the Trinity. We understand that they sustain a similar relationship to the Ultimate. We often conjecture as to what will be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dise Deities and God the Supreme when he has finally evolved, but we do not really know.

10:7.4 (115.6) We do not find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to be wholly predictable. Furthermore, this unpredictability appears to be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velopmental incompleteness, undoubtedly an earmark of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and of the incompleteness of finite reaction to the Paradise Trinity.

10:7.5 (115.7) The mortal mind can immediately think of a thousand and one things — catastrophic physical events, appalling accidents, horrific disasters, painful illnesses, and world-wide scourges — and ask whether such visitations are

지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며; 정말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어렵고 다소 신비스런 상황이 항상 우주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실존의 환경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천은 모두, **지존자의 기능과 삼위일체의 전면통제로** 말미암아, 높은 가치의 의미심장한 원형(原型) 속으로 서로 엮어지는 것 같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낙원 삼위일체**의 우주 행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개별 인간의 선(善)에 기여하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 속에서 진보하는 동안에, **삼위일체** 행위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고 신중하게 드러나겠지만, 그 행위가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8.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낙원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많은 진리와 사실은, 유한을 초월하는 어떤 기능을 인식함으로써만 부분적으로라도 납득할 수 있다.

궁극 삼위일체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은 권장할만하지 못하겠지만, **초월자들이** 납득하는 **삼위일체** 형태화가 **궁극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밝혀둘 만하다. 우리는, 총괄우주 통합이 **궁극자**가 결국 이룩하는 행위이며, **낙원 삼위일체**의 유한절대 전면통제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어떤 국면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지존자**는 유한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변하며, 같은 의미에서, **궁극자**는 유한절대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삼위일체**가 제한적으로 형태화한 분이다.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어떤 의미에서, **신격** 전체를 구성하는 인격체들이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의 합동과 **삼위일체**의 절대 기능은, 전체 **신격**의 기능과 같다. 그리고 **신격**의 그런 완성은 유한계(有限界)와 유한절대계 양쪽을 초월한다.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한 인격자든지 실제로 전체 **신격** 잠재력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세 분 전체가 집단으로 그렇게 한다. 세 분의 무한한 인격자는, 전체 **신격**--곧 **신격 절대자**--의 인격이전 잠재력과 실존 잠재력에 요구되는 최소 숫자의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인격자**임을 알지만, 나는 **신격 절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아**

correlated in the unknown maneuvering of this probable functioning of the Supreme Being. Frankly, we do not know; we are not really sure. But we do observe that, as time passes, all these difficult and more or less mysterious situations *always* work out for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universes. It may be that the circumstances of existence and the inexplicable vicissitudes of living are all interwoven into a meaningful pattern of high value by the function of the Supreme and the overcontrol of the Trinity.

10:7.6 (116.1) As a son of God you can discern the personal attitude of love in all the acts of God the Father. But you will not always be able to understand how many of the universe acts of the Paradise Trinity redound to the good of the individual mortal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In the progress of eternity the acts of the Trinity will be revealed as altogether meaningful and considerate, but they do not always so appear to the creatures of time.

8. THE TRINITY BEYOND THE FINITE

10:8.1 (116.2) Many truths and facts pertaining to the Paradise Trinity can only be even partially comprehended by recognizing a function that transcends the finite.

10:8.2 (116.3) It would be inadvisable to discuss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of Ultimacy, but it may be disclosed that God the Ultimate is the Trinity manifestation comprehended by the Transcendentals. We are inclined to the belief that the unifica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e eventuating act of the Ultimate and is probably reflective of certain, but not all, phases of the absonite overcontrol of the Paradise Trinity. The Ultimate is a qualified manifestation of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absonite only in the sense that the Supreme thus partially represents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10:8.3 (116.4)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in a certain sense, the constituent personalities of total Deity. Their union in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absolute function of the Trinity equvalate to the function of total Deity. And such completion of Deity transcends both the finite and the absonite.

10:8.4 (116.5) While no single person of the Paradise Deities actually fills all Deity potential, collectively all three do. Three infinite persons seem to be the minimum number of beings required to activate the prepersonal and existential potential of total Deity — the Deity Absolute.

10:8.5 (116.6) We know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s*, but I do not personally know the Deity Absolute. I love

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신격 절대자**를 존경하고 공경한다.

나는 한때 어떤 우주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우주에서는, 완결성취자들이 영원 속에서 결국 **신격 절대자**의 자녀가 되게 돼있다고, 어떤 집단의 존재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나는 완결성취자들의 미래를 가리고 있는 그 신비에 대한 이런 해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완결성취 단체는, 다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모든 면에 완전성을 달성한,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를 포함한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피조물 수용력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참되게 안다. 이 완결성취자들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 그렇게 발견하면, 언젠가 반드시 초월_유한 **아버지**를 향한 탐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탐구는, **낙원 아버지**의 궁극 속성들과 성품의 유한절대 본성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그런 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영원성이 드러내겠지만, 완결성취자들이 신성(神性)의 이 궁극성을 파악하더라도 절대 **신격**의 초월궁극 수준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완결성취자들이 **신격 절대자**를 부분적으로 달성하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끝없는 영원에서 여전히 **우주 절대자**에 대한 문제가, 상승하면서 진보하는 완결성취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돋우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당황하게 하고 도전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물질 우주들 및 그 영적 행정부가 계속 팽창함에 비례해서, **우주 절대자**의 시공우주 관계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무한만이 **아버지_무한자**를 드러낼 수 있다.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권세를 받아 행동하는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and worship God the Father; I respect and honor the Deity Absolute.

10:8.6 (116.7) I once sojourned in a universe where a certain group of beings taught that the finaliters, in eternity, were eventually to become the children of the Deity Absolute. But I am unwilling to accept this solution of the mystery which enshrouds the future of the finaliters.

10:8.7 (116.8) The Corps of the Finality embrace, among others, those mortals of time and space who have attained perfection in all that pertains to the will of God. As creatures and within the limits of creature capacity they fully and truly know God. Having thus found God as the Father of all creatures, these finaliters must sometime begin the quest for the superfinite Father. But this quest involves a grasp of the absonite nature of the ultimate attributes and character of the Paradise Father. Eternity will disclose whether such an attainment is possible, but we are convinced, even if the finaliters do grasp this ultimate of divinity, they will probably be unable to attain the superultimate levels of absolute Deity.

10:8.8 (116.9) It may be possible that the finaliters will partially attain the Deity Absolute, but even if they should, still in the eternity of eternities the problem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continue to intrigue, mystify, baffle, and challenge the ascending and progressing finaliters, for we perceive that the unfathomability of the cosmic relationships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tend to grow in proportions as the material universes and their spiritual administration continue to expand.

10:8.9 (117.1) Only infinity can disclose the Father-Infinite.

10:8.10 (117.2)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acting by authority from the Ancients of Days resident on Uversa.]

제11편. 영원한 낙원 섬

⇨ 010

유랜시아 책

012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1편
영원한 낙원 섬

섹션

소개

1. 신성한 거주지
2. 영원한 섬의 본성
3. 상부 낙원
4. 주변 낙원
5. 하부 낙원
6. 공간 호흡 작용
7. 낙원의 공간 기능
8. 낙원 인력
9. 낙원의 독특성

소개

낙원은 온갖 우주의 영원한 중심이며,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세 분의 신성한 협조자 및 동역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중앙 **섬**은, 총괄우주 전체에서 시공우주 실체 가운데 가장 거대한 조직체다. **낙원**은 물질적인 천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거주지다. **만유의 아버지**의 지성 창조물 전체는 물질 거주지에 거주하며; 따라서 절대 통제 중심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물질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영 물체와 영적 존재들은 실재한다.

낙원의 물질적 아름다움은 장엄한 물리적 완성에 있으며; **하나님의 섬**의 장관(壯觀)은, 거기 거주하는 존재들의 뛰어난 지적 업적과 정신 발달에서 드러나며; 중앙 **섬**의 영광은, 신성한 영 인격체의 무한한 재능에서--곧 생명의 빛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영적(靈的) 아름다움의 깊이와 이 장엄한 전체조화의 경이로움은, 물질 피조물의 유한한 정신의 납득한계를 아주 벗어난다. 신성한 거주지의 영광과 영적 광채를, 필사자는 납득할 수 없다.

PAPER 11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ivine Residence
2. Nature of the Eternal Isle
3. Upper Paradise
4. Peripheral Paradise
5. Nether Paradise
6. Space Respiration
7. Space Functions of Paradise
8. Paradise Gravity
9. The Uniqueness of Paradise

INTRODUCTION

11:0.1 (118.1) PARADISE is the eternal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e abiding pla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ir divine co-ordinates and associates. This central Isle is the most gigantic organized body of cosmic reality in all the master universe. Paradise is a material sphere as well as a spiritual abode. All of the intelligent cre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domiciled on material abodes; hence must the absolute controlling center also be material, literal. And again it should be reiterated that spirit things and spiritual beings are *real*.

11:0.2 (118.2) The material beauty of Paradise consists in the magnificence of its physical perfection; the grandeur of the Isle of God is exhibited in the superb intellectual accomplishments and mind development of its inhabitants; the glory of the central Isle is shown forth in the infinite endowment of divine spirit personality — the light of life. But the depths of the spiritual beauty and the wonders of this magnificent ensemble are utterly beyond the

그리고 **낙원**은 영원부터 존재하며; 핵심에 있는 **이 빛과 생명의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승도 없다.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of material creatures. The glory and spiritual splendor of the divine abode are impossible of mortal comprehension. And Paradise is from eternity; there are neither records nor traditions respecting the origin of this nuclear Isle of Light and Life.

1. 신성한 거주지

낙원은, 우주의 부문들을 경영할 때 여러 목적에 이바지하지만, 피조 존재들에게는 1차로 **신격**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존재한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은, 거의 원형{圓形}이지만 구형{球形}은 아닌 이곳의 위쪽 표면 정 중앙, 즉 **신격**들의 거처에 거하신다. **만유의 아버지**의 이 **낙원** 현존은, **영원한 아들**이 몸소 현존하심으로 바로 둘러싸였는데, 두 분 다 **무한한 영**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뒤덮여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중앙 거처에 거하고, 거해 왔으며, 또한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항상 그분을 발견해 왔으며, 또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시공우주에서 초점이고, 영적으로 인격화돼 있으며, 지리적으로 온갖 우주의 이 중심에 거하신다.

우리는 모두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직통 진로를 안다. 너희는 신성한 거주지에 관해서 많이 납득할 수 없는데, 이는 그 거주지가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광대함 때문이지만, 이 거대한 간격의 의미를 납득할 수 있는 자는, 마치 너희가 **유란시아**에 명확하게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된 도시인, **뉴욕**, **런던**, **로마**, 또는 **싱가포르**를 아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치와 거주지를 안다. 너희가, 배, 지도, 그리고 나침반을 가진 지성 있는 항해자였다면, 쉽게 이 도시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항해 시간과 수단을 갖췄다면, 영적으로 자격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안내를 받는다면, 너희는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을 통해 안쪽으로 계속 여행하면서, 마침내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영광이 빛나는 중심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그리고 이 회로에서 저 회로로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여행을 위한 모든 필수품을 가졌다면, 너희 자신의 행성에서 먼 도시를 찾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의 중앙에 친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장소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임을 또는 실제로 실존함을 어떤 식으로도 부정하지 못한다. 우주 피조물 가운데 매우 적은 숫자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해서, 만유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의 영적{靈的} 인격자가 실체임을 또는 그분의 실존이 실체임을, 어떤 식으로도 부정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이 중앙 위치에서 항상 발견되게 돼

1. THE DIVINE RESIDENCE

11:1.1 (118.3) Paradise serves many purpose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al realms, but to creature beings it exists primarily as the dwelling place of Deit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s resident at the very center of the upper surface of this well-nigh circular, but not spherical, abode of the Deities. This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while they are both invested by the unspeakable glory of the Infinite Spirit.

11:1.2 (118.4) God dwells, has dwelt, and everlastingly will dwell in this same central and eternal abode. We have always found him there and always will. The Universal Father is cosmically focalized, spiritually personalized, and geographically resident at this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1:1.3 (118.5) We all know the direct course to pursue to find the Universal Father. You are not able to comprehend much about the divine residence because of its remoteness from you and the immensity of the intervening space, but those who are able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se enormous distances know God's location and residence just as certainly and literally as you know the location of New York, London, Rome, or Singapore, cities definitely and geographically located on Urantia. If you were an intelligent navigator, equipped with ship, maps, and compass, you could readily find these cities. Likewise, if you had the time and means of passage, were spiritually qualified, and had the necessary guidance, you could be piloted through universe upon universe and from circuit to circuit, ever journeying inward through the starry realms, until at last you would stand before the central shining of the spiritual glory of the Universal Father. Provided with all the necessities for the journey, it is just as possible to find the personal presence of God at the center of all things as to find distant cities on your own planet. That you have not visited these places in no way disproves their reality or actual existence. That so few of the universe creatures have found God on Paradise in no way disproves either the reality of his existence or the actuality of his spiritual per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11:1.4 (119.1) The Father is always to be found at this

있다. **아버지**가 움직였다면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창조물의 맨 끝으로부터 우주의 인력 계통들이 이 거주지 중심에서 그분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들을 통해서 인력 회로를 거꾸로 추적하든지, 또는 상승하는 인력체들이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들을 따라가든지; 하부 **낙원**을 향해 물질 인력 계통을 추적하든지, 또는 시공우주 힘의 반동하는 순환을 따라가든지; **영원한 아들**을 향한 영적 인력 계통을 추적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안쪽을 향한 행렬을 따라가든지; 정신 회로를 추적하든지, 아니면 **무한한 영**으로부터 솟아난 수 조(兆)의 천상의 존재를 따라가든지 --이 여러 관찰 가운데 어느 것 또는 모든 관찰 결과로-- 우리는 **아버지**의 현존을 향해서, 즉 그분의 중앙 거주지를 향해서 돌아가도록 직접 인도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친히, 분명하게,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존재로부터, 생명, 에너지, 및 인격이 모든 우주를 향해서 홍수가_휩쓸듯 흘러나간다.

2. 영원한 섬의 본성

너희의 천문학상 위치, 별이 가득한 체계들이 자리 잡은 너희의 공간 위치에서도, 물질 우주의 광대함을 너희가 비로소 어렴풋이 식별할 수 있게 됐으므로, 그토록 거대한 물질 우주가, 적절하고 마땅한 수도{首都}, 즉 어떤 본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명백해질 것인데, 이 수도는 물질 영역과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득한, 방대하고 광범한 이 전체 창조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의 위엄과 무궁함에 어울린다.

낙원은 인간거주 천체{天體}들과는 형체가 다르며: 구형{球形}이 아니다. 확실히 타원체인데, 남북 지름이 동서 지름보다 6분의 1 더 길다. 중앙 **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윗면에서 아랫면까지 거리는 동서 지름의 10분의 1이다.

낙원의 정지 상태와 관련된, 그리고 **섬**의 북쪽 끝에 작용하는 힘_에너지로 인한 높은 외부_압력과 관련된, 이 용적{容積}의 차이가, 총괄우주에서 절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중앙 **섬**은 지리적으로 세 활동 범위로 나뉘어 있다:

1. 상부 낙원.
2. 주변 낙원.
3. 하부 낙원.

우리는, 인격체 활동에 사용되는 **낙원** 표면을 상부 면으로, 그 반대 표면을 하부 면으로 이야기한다. **낙원**의 주변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 있는 활동이 아닌, 즉 인격 없는 활동을 위해 마련돼 있다. 인격 있는 평면, 즉 상부 평면을 **삼위일**

central location. Did he move, universal pandemonium would be precipitated, for there converge in him at this residential center the universal lines of gravity from the ends of creation. Whether we trace the personality circuit back through the universes or follow the ascending personalities as they journey inward to the Father; whether we trace the lines of material gravity to nether Paradise or follow the insurging cycles of cosmic force; whether we trace the lines of spiritual gravity to the Eternal Son or follow the inward procession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whether we trace out the mind circuits or follow the trillions upon trillions of celestial beings who spring from the Infinite Spirit — by any of these observations or by all of them we are led directly back to the Father's presence, to his central abode. Here is God personally, literally, and actually present. And from his infinite being there flow the flood-streams of life, energy, and personality to all universes.

2. NATURE OF THE ETERNAL ISLE

11:21 (119.2) Since you are beginning to glimpse the enormousness of the material universe discernible even from your astronomical location, your space position in the starry systems, it should become evident to you that such a tremendous material universe must have an adequate and worthy capital, a headquarters commensurate with the dignity and infinitude of the universal Ruler of all this vast and far-flung creation of material realms and living beings.

11:22 (119.3) In form Paradise differs from the inhabited space bodies: it is not spherical. It is definitely ellipsoid, being one-sixth longer in the north-south diameter than in the east-west diameter. The central Isle is essentially flat, and the distance from the upper surface to the nether surface is one tenth that of the east-west diameter.

11:23 (119.4) These differences in dimensions, taken in connection with its stationary status and the greater out-pressure of force-energy at the north end of the Isle,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absolute direction in the master universe.

11:24 (119.5) The central Isle is geographically divided into three domains of activity:

- 11:25 (119.6) 1. Upper Paradise.
- 11:26 (119.7) 2. Peripheral Paradise.
- 11:27 (119.8) 3. Nether Paradise.

11:28 (119.9) We speak of that surface of Paradise which is occupied with personality activities as the upper side, and the opposite surface as the nether side. The periphery of Paradise provides for activities that are not strictly personal or

체가 지배하고, 하부 평면, 즉 비인격 평면을 **무조건 절대자**가 지배하는 듯하다. 우리는 **무조건 절대자**를 한 인격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절대자**의 기능적 공간 현존이 하부 **낙원**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섬**은 획일적인 물질화 구조--곧 정지된 실체 체계들--로 구성돼 있다. **낙원**의 이 순전한 내용물은, 광대{廣大}한 온갖 우주 전체 어디셔도 발견되지 않을 공간 잠재력을 갖는 균일한 조직이다. 다른 우주들에서는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오래 전부터 **절대 물질**이라고 불렀다. 이 **낙원** 근원 물질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며;**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원래의 비영적{非靈的} 표현이며;그것이 **낙원**이고, **낙원**과 똑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1 근원 및 중심**이 무한성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기법의 일부분으로서, 즉 시_공간 창조계조차 준{準}무한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시공우주 실체를 위한 모든 절대 잠재력을 **낙원**에 응집시켜 온 것 같다. 그러나 온갖 우주가 시_공간에 제한 받는 특성을 드러낸다는 이유만으로, **낙원**도 그런 특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낙원**은 시간 범위 바깥에 존재하고, 공간에 위치가 없다.

대체로:겉으로 보기에 공간은 하부 **낙원** 바로 아래에서 기원되는 것 같으며;시간은 상부 **낙원** 바로 위에서 기원되는 것 같다. 너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시간은 **낙원** 실존의 특질이 아니지만, 중앙 **섬**의 시민은 사건들의 비{非}시간적 연속을 충분히 의식한다. 움직임은 **낙원**에 내재돼 있지 않으며;외지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러나 거리 개념은, 심지어 절대 거리도, **낙원**에서 상대적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많은 의미를 갖는다. **낙원**은 비공간이며;그러므로 그 면적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필사 정신 개념이 해아릴 수 없는 여러 방식으로 쓸모 있다.

3. 상부 낙원

상부 **낙원**에는 광대한 세 활동 영역, 즉 **신격** 현존, **최고 거룩 구면**{球面}, 및 **거룩한 지역**이 있다. **신격**들의 현존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방대한 지역은, **최고 거룩 구면**으로 별리{別離}돼 있고, 경배, 삼자일체됨,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 기능을 위하여 예비돼 있다. 이 지대에는 물질 구조물이 없고, 지적일 뿐인 창조물도 없으며;그것들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 **낙원**의 **최고 거룩 구면**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웅장함을, 내가 인간 정신에게 묘사하려고 시도해봤자 소용없다. 이 영역은 완전히 영적이고, 너희는 거의 완전히 물질적이다.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에게는, 순전히 영적인 실체는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nonpersonal. The Trinity seems to dominate the personal or upper plane,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nether or impersonal plane. We hardly conceiv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s a person, but we do think of the functional space presence of this Absolute as focalized on nether Paradise.

11:2.9 (120.1) The eternal Isle is composed of a single form of materialization — stationary systems of reality. This literal substance of Paradise is a homogeneous organization of space potency not to be found elsewhere in all the wide universe of universes. It has received many names in different universes, and the Melchizedeks of Nebadon long since named it *absolutum*. This Paradise source material is neither dead nor alive; it is the original nonspiritual express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t is *Paradise*, and Paradise is without duplicate.

11:2.10 (120.2) It appears to us tha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s concentrated all absolute potential for cosmic reality in Paradise as a part of his technique of self-liberation from infinity limitations, as a means of making possible subinfinite, even time-space, creation. But it does not follow that Paradise is time-space limited just because the universe of universes discloses these qualities. Paradise exists without time and has no location in space.

11:2.11 (120.3) Roughly: space seemingly originates just below nether Paradise; time just above upper Paradise. Time, as you understand it, is not a feature of Paradise existence, though the citizens of the central Isle are fully conscious of nontime sequence of events. Motion is not inherent on Paradise; it is volitional. But the concept of distance, even absolute distance, has very much meaning as it may be applied to relative locations on Paradise. Paradise is nonspatial; hence its areas are absolute and therefore serviceable in many ways beyond the concept of mortal mind.

3. UPPER PARADISE

11:3.1 (120.4) On upper Paradise there are three grand spheres of activity, the *Deity presence*, the *Most Holy Sphere*, and the *Holy Area*. The vast region immediately surrounding the presence of the Deities is set aside as the Most Holy Sphere and is reserved for the functions of worship, trinitization, and high spiritual attainment. There are no material structures nor purely intellectual creations in this zone; they could not exist there. It is useless for me to undertake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the divine nature and the beautiful grandeur of the Most Holy Sphere of Paradise. This realm is wholly spiritual, and you are almost wholly material. A purely spiritual reality is, to a purely material being, apparently nonexistent.

최고 거룩 지역에는 어떤 물리적 물질화도 없으며, 한편 **거룩한 땅** 구역들에서 보내는 너희의 물질 시절에 대한 풍부한 기념품이 있고, 주변 **낙원**에 속하는 회상하는 역사적 지역에는 훨씬 많이 있다.

바깥 지대, 즉 거주하는 지대인 **거룩한 지역**은, 일곱 동심{同心} 지대로 나뉘어 있다. **낙원**은 때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그의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이며, 이 일곱 지대는 종종 “**아버지의 낙원** 맨션”을 가리킨다. 내부, 즉 첫째 지대는, **낙원 시민**과 **낙원**에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하보나** 원주민이 차지한다. 그 다음 지대, 즉 둘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일곱 연방우주 원주민의 주택 지역이다. 이 둘째 지대는 부분적으로 거대한 일곱 구역{區劃}으로 나뉘어 있는데, 진화로 진보하는 우주들에서 오는 영 존재 및 상승한 피조물의 **낙원** 고향이다. 이 구역들 각각은 단일 연방우주 인격체들의 복지와 발전에 독점적으로 제공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의 필요조건을 거의 무한하게 초월한다.

낙원의 일곱 구역 각각은 거주 단위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10억 개의 영화롭게 된 개별 활동 집단의 거점{據點} 본부가 되기에 알맞다. 이 단위 1,000개가 모여서 한 구획을 이룬다. 10만 개의 구획이 한 회중과 같다. 1,000만 개의 회중이 한 집회를 구성한다. 10억 개의 집회가 하나의 광단위{廣單位}를 만든다. 증가하는 이 계열들은 둘째 광단위, 셋째 광단위, 그리고 계속해서 일곱째 광단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광단위 일곱 개가 모여서 총괄단위를 이루고, 일곱 총괄단위는 하나의 상급{上級}단위를 이루며; 그리하여 일곱씩 증가하는 계열이, 상급, 초월상급, 천상{天上}, 초월천상을 거쳐서 최고 단위까지 커진다. 그러나 이것조차 모든 공간세계를 가능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너희의 개념을 초월하는 숫자인, **낙원**에 있는 거주전용의 이 경이적 숫자는, **거룩한 땅**의 배정된 지역 중에서 1퍼센트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영원한 미래 시절까지 **낙원**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시작하지 못할, 안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풍부한 여유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4. 주변 낙원

중앙 **섬**은 주변지역에서 갑자기 끝나지만,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각도는 모든 둘러싸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분간될 수 없다. 영적 인격체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 도착하고 출발하는 마당들이, **낙원**의 주변지역 표면을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비충만{非充滿} 공간

11:3.2 (120.5) While there are no physical materializations in the area of the Most Holy, there are abundant souvenirs of your material days in the Holy Land sectors and still more in the reminiscent historic areas of peripheral Paradise.

11:3.3 (120.6) The Holy Area, the outlying or residential region, is divided into seven concentric zones. Paradise is sometimes called “the Father’s House” since it is his eternal residence, and these seven zones are often designated “the Father’s Paradise mansions.” The inner or first zone is occupied by Paradise Citizens and the natives of Havona who may chance to be dwelling on Paradise. The next or second zone is the residential area of the nativ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is second zone is in part subdivided into seven immense divisions, the Paradise home of the spirit beings and ascendant creatures who hail from the universe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Each of these sectors is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the personalities of a single superuniverse, but these facilities are almost infinitely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11:3.4 (121.1) Each of the seven sectors of Paradise is subdivided into residential units suitable for the lodgment headquarters of one billion glorified individual working groups. One thousand of these units constitute a division. One hundred thousand divisions equal one congregation. Ten million congregations constitute an assembly. One billion assemblies make one grand unit. And this ascending series continues through the second grand unit, the third, and so on to the seventh grand unit. And seven of the grand units make up the master units, and seven of the master units constitute a superior unit; and thus by sevens the ascending series expands through the superior, supersuperior, celestial, supercelestial, to the supreme units. But even this does not utilize all the space available. This staggering number of residential designations on Paradise, a number beyond your concept, occupies considerably less than one per cent of the assigned area of the Holy Land. There is still plenty of room for those who are on their way inward, even for those who shall not start the Paradise climb until the times of the eternal future.

4. PERIPHERAL PARADISE

11:4.1 (121.2) The central Isle ends abruptly at the periphery, but its size is so enormous that this terminal angle is relatively indiscernible within any circumscribed area. The peripheral surface of Paradise is occupied, in part, by the landing and dispatching fields for various groups of spirit personalities. Since the nonpervaded-space

지대가 주변지역에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모든 인격체를 운반하는 수단은 이 지역에 착륙하게 돼있다. 운반 최고스랍 또는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는, 상부 **낙원**뿐 아니라 하부 **낙원**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일곱 으뜸 영은, **아들**의 빛나는 천체들과 **하보나** 내부 회로 세계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낙원**을 회전하는, **영**의 일곱 구체 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신의 개인 보좌{寶座}를 갖지만, 그들은 **낙원** 주변지역에 힘_초점 본부를 둔다. 여기서 서서히 회전하는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현존은, 일곱 연방우주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특정한 **낙원** 에너지를 위해, 일곱 섬광{閃光} 정류장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 주변 **낙원**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에 배정된, **창조주 아들**들에게 제공된 거대한 역사적 및 선지적{先知的} 전시 지역들이 있다. 현재 설치됐거나 또는 예정된 이 역사적 보류지{保留地}가 거기에 정확하게 7조 개 있지만, 이 전체 배열은 그렇게 제공된 주변지역 가운데 그 부분의 약 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광대한 이 보류지가, 현재 알려진 일곱 인간거주 연방우주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곳에 언젠가 있게 될 창조계에 속한다고, 우리는 추론한다.

현존하는 우주들이 활용하도록 지정돼 온 **낙원**의 그 부분은, 오직 1내지 4퍼센트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이 활동에 배정된 지역은, 그런 목적을 위해 실제로 요구되는 것보다 적어도 100만 배에 해당한다. **낙원**은 거의 무한한 창조 활동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그러나 **낙원**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더 많이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승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치고 생존되는 그들을 위해 **만유의 아버지**가 마련해 오신 것을, 사람의 눈이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필사적 사람의 정신에 떠오른 적도 없기 때문이다.”

5. 하부 낙원

우리는 하부 **낙원**에 관해서 계시된 것만 알며; 인격체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영 지성체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신격 절대자**도 거기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물리적_에너지와 시공우주_힘 회로들이 하부 **낙원**에서 기원됐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고 들었다:

1. 하부 **낙원**의 중앙 부분 중에서, **삼위일체**의 위치 바로 아래는,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zones nearly impinge upon the periphery, all personality transports destined to Paradise land in these regions. Neither upper nor nether Paradise is approachable by transport supernaphim or other types of space traversers.

11:4.2 (121.3)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their personal seats of power and authority on the seven spheres of the Spirit, which circle about Paradise in the space between the shining orbs of the Son and the inner circuit of the Havona worlds, but they maintain force-focal headquarters on the Paradise periphery. Here the slowly circulating presences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indicate the location of the seven flash stations for certain Paradise energies going forth to the seven superuniverses.

11:4.3 (121.4) Here on peripheral Paradise are the enormous historic and prophetic exhibit areas assigned to the Creator Sons, dedicated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re are just seven trillion of these historic reservations now set up or in reserve, but these arrangements all together occupy only about four per cent of that portion of the peripheral area thus assigned. We infer that these vast reserves belong to creations sometime to be situated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known and inhabited seven superuniverses.

11:4.4 (121.5) That portion of Paradise which has been designated for the use of the existing universes is occupied only from one to four per cent, while the area assigned to these activities is at least one million times that actually required for such purposes. Paradise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the activities of an almost infinite creation.

11:4.5 (121.6) But a further attempt to visualize to you the glories of Paradise would be futile. You must wait, and ascend while you wait, for truly, “Eye has not seen, nor ear heard, neither has it entered into the mind of mortal man, the things which the Universal Father has prepared for those who survive the life in the flesh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5. NETHER PARADISE

11:5.1 (122.1) Concerning nether Paradise, we know only that which is revealed; personalities do not sojourn there. It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e affairs of spirit intelligences, nor does the Deity Absolute there function. We are informed that all physical-energy and cosmic-force circuits have their origin on nether Paradise, and that it is constituted as follows:

11:5.2 (122.2) 1. Directly underneath the location of the Trinity, in the central portion of nether

무한성의 지대다.

2. 이 **지대**는 이름 없는 어떤 지역{地域}으로 바로 둘러싸여 있다.

3. 공간 잠재력과 힘_에너지에 주로 관계해야 하는 어떤 지역이, 하부 표면의 외부 경계선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대한 타원형 힘 중심의 활동은, 어느 삼중체든지 알려진 그 기능과 일치될 수 없지만, 공간의 원시 힘_충전 중심이 이 지역에 맞춰진 것 같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형 지대로 구성되는데; 가장 안쪽은 **낙원** 자체의 힘_에너지 활동의 중심이며; 가장 바깥쪽은 **무조건 절대자**의 기능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중간_지대의 공간 기능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 힘 중심의 **내부 지대**는, 그 박동이 물리적 공간의 가장 바깥 경계선 쪽으로 흐름을 내보내는 거대한 심장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힘_에너지를 지시하고 변경시키지만, 그것을 조종하지는 않는다. 이 원초적 힘의 실제 압력_현존은, 남쪽 지역보다 **낙원** 중심의 북쪽 끝에서 분명히 더 크며; 이것은 균일하게 등록된 차이이다. 공간의 모체{母體} 힘은, 힘_에너지의 이 기초 형태의 확산과 관계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환 체계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들어 오고, 북쪽에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_서 압력 속에는 때때로 두드러진 차이 또한 있다. 이 지대로부터 발산되는 힘은, 관측 가능한 물리적 인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낙원** 인력에는 반드시 순응한다.

힘 중심의 **중간 지대**가 이 지역을 즉시 둘러싼다. 이 중간_지대는, 세 활동 주기를 통해서 팽창하고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의 이 진동이 동_서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북_남 방향으로 일어나며, 한편 가장 큰 파동{波動}은, 모든 방향, 즉 종합된 팽창 및 축소로 일어난다. 이 중간_지역의 기능이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힘 중심의 내부 및 외부 지대 사이의 상호 조율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_지대는, 총괄우주의 연속 공간 수평면들을 분리하는 중간_공간, 즉 고요한 지대들의 통제 장치라고 믿는 자가 많지만, 어떤 증거물 또는 계시도 이것을 확증하지 않는다. 이 추론은, 이 중간_지역이 총괄우주의 비충만{非充滿}_공간의 기능발휘와 어떤 방법으로 관련된다는 지식에서 유래한다.

외부 지대는, 미확인된 공간 잠재력의 세 동심 타원 띠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이다. 이 지역은 추측되지 않는 활동의 터전인데, 일곱 연방우주의 가장 외곽 경계선을 향해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모든 외부 공간의 거대하고 이해할 수

Paradise, is the unknown and unrevealed Zone of Infinity.

11:5.3 (122.3) 2. This Zone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an unnamed area.

11:5.4 (122.4) 3. Occupying the outer margins of the under surface is a region having mainly to do with space potency and force-energy. The activities of this vast elliptical force center are not identifiable with the known functions of any triunity, but the primordial force-charge of space appears to be focalized in this area. This center consists of three concentric elliptical zones: The innermost is the focal point of the force-energy activities of Paradise itself; the outermost may possibly be identified with th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e are not certain concerning the space functions of the mid-zone.

11:5.5 (122.5) *The inner zone* of this force center seems to act as a gigantic heart whose pulsations direct currents to the outermost borders of physical space. It directs and modifies force-energies but hardly drives them. The reality pressure-presence of this primal force is definitely greater at the north end of the Paradise center than in the southern regions; this is a uniformly registered difference. The mother force of space seems to flow in at the south and out at the north through the operation of some unknown circulatory system which is concerned with the diffusion of this basic form of force-energy. From time to time there are also noted differences in the east-west pressures. The forces emanating from this zone are not responsive to observable physical gravity but are always obedient to Paradise gravity.

11:5.6 (122.6) *The mid-zone* of the force center immediately surrounds this area. This mid-zone appears to be static except that it expands and contracts through three cycles of activity. The least of these pulsations is in an east-west direction, the next in a north-south direction, while the greatest fluctuation is in every direction, a generalized expansion and contraction. The function of this mid-area has never been really identified, but it must have something to do with reciprocal adjustment between the inner and the outer zones of the force center. It is believed by many that the mid-zone is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midspace or quiet zones which separate the successiv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but no evidence or revelation confirms this. This inference is derived from the knowledge that this mid-area is in some manner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nonpervaded-space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11:5.7 (122.7) *The outer zone* is the largest and most active of the three concentric and elliptical belts of unidentified space potential. This area is the site of unimagined activities, the central circuit point of emanations which proceed spaceward in every

없는 범위를 뒤덮을 정도 이상으로 공간을_향해 진행하는, 발산하는 중앙 회로 지점이다. 이 공간 현존은, **삼위일체**로서 행동할 때, 무한한 **신격**들의 의지와 명령에 대해 발견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전체적으로 비인격{非人格}이다.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중앙 초점집중{焦點集中}, 즉 **낙원** 중심이라고 믿어진다.

힘의 모든 형태와 에너지의 모든 국면은 회로화 되는 것처럼 보이며; 우주 전역에서 순환하고, 확실한 경로로 돌아온다. 그러나 **무조건 절대자**의 활성화된 지대의 방사물들과 함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어느 한 쪽으로 나타난다--결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외부 지대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주기로 맥동{脈動}한다. 이 중심의 공간_세력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보다 약간 더 오래 밖으로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비슷한 시간 동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의 공간_세력 형태화는 보편적이며; 퍼질 수 있는 모든 공간 전반에 확장한다.

모든 물리적 힘, 에너지, 및 물질은 하나다. 모든 힘_에너지는 원래 하부 **낙원**에서 나왔으며, 공간 회로를 마친 다음에는 결국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온갖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 조직 전부가 현재 현상의 상태 그대로 하부 **낙원**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며; 공간은 물질과 물질_이전의 여러 형태가 발생하는 요람이다. **낙원** 힘 중심의 외부 구역이 공간_에너지의 근원임에도, 공간은 거기서 기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힘이나 에너지 또는 동력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맥동이 공간 호흡 작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지대의 들어오는 단계와 나가는 단계는, 공간의 20억 년 팽창_축소 주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6. 공간 호흡 작용

우리는 공간 호흡 작용의 실제 짜임새를 알지 못하며; 다만 모든 공간이 교대로 축소하고 팽창하는 것을 관측할 뿐이다. 이 호흡 작용은 충만한 공간의 수평 확장과, **낙원** 위쪽 및 아래쪽의 방대한 공간 저장소에 존재하는 비충만{非充滿} 공간의 수직 확장, 양쪽에 영향을 준다. 너희는 이 공간 저장소의 부피 윤곽을 상상하려고 할 때, 모래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충만한 공간의 수평으로 확장하는 우주들이 팽창할 때, 비충만 공간의 수직으로 확장하는 저장소는 축소하며, 역으로도 똑같다. 하부 **낙원** 바로 아래에, 충만 및 비충만 공간의 합류점이 있다. 두 공간 유형이, 변형시키는 정규 경로를 통해 거기서 순환하는데, 이 경로에는 시공우주가 축소하고 확장하는 주기{週期} 안에서, 충만 가능 공간을

direction to the outermost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on beyond to overspread the enormous and incomprehensible domains of all outer space. This space presence is entirely impersonal notwithstanding that in some undisclosed manner it seems to be indirectly responsive to the will and mandates of the infinite Deities when acting as the Trinity. This is believed to be the central focalization, the Paradise center,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1:5.8 (123.1) All forms of force and all phases of energy seem to be encircuited; they circulate throughout the universes and return by definite routes. But with the emanations of the activated zon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re appears to be either an outgoing or an incoming — never both simultaneously. This outer zone pulsates in agelong cycles of gigantic proportions. For a little more than one billion Urantia years the space-force of this center is outgoing; then for a similar length of time it will be incoming. And the space-force manifestations of this center are universal; they extend throughout all pervadable space.

11:5.9 (123.2) All physical force, energy, and matter are one. All force-energy originally proceeded from nether Paradise and will eventually return thereto following the completion of its space circuit. But the energies and material organization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did not all come from nether Paradise in their present phenomenal states; space is the womb of several forms of matter and prematter. Though the outer zone of the Paradise force center is the source of space-energies, space does not originate there. Space is not force, energy, or power. Nor do the pulsations of this zone account for the respiration of space, but the incoming and outgoing phases of this zone are synchronized with the two-billion-year expansion-contraction cycles of space.

6. SPACE RESPIRATION

11:6.1 (123.3) We do not know the actual mechanism of space respiration; we merely observe that all space alternately contracts and expands. This respiration affects both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and the vertical extensions of unpervaded space which exist in the vast space reservoirs above and below Paradise. In attempting to imagine the volume outlines of these space reservoirs, you might think of an hourglass.

11:6.2 (123.4) As the universes of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expand, the reservoirs of the vertical extension of unpervaded space contract and vice versa. There is a confluence of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just underneath nether Paradise. Both types of space there flow through the transmuting

충만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화, 그리고 그 반대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다.

“비충만” 공간은:충만하게 된 공간에 실존한다고 알려진 그 힘, 에너지, 동력, 및 현존들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직 공간이(곧 저장소가) 항상 수평 공간의(곧 우주의) 균형 세력으로서 작용하게 돼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며;거기에 비충만 공간과 관계되는 창조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며;공간 저장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 그리고 온갖 우주의 공간_확장_축소 주기를 균형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뿐이다.

공간 호흡 작용의 주기는, 각 단계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보다 조금 긴 기간 계속된다. 우주들은 한 단계 동안 팽창하며;다음 단계 동안 축소한다. 충만한 공간은 팽창하는 단계의 중간_지점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 한편 비충만 공간은 축소 단계의 중간_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두 공간 확장의 최고 외부 한계가 지금 **낙원**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들었다. 비충만_공간 저장소는 우주의 충만한 공간이 주변지역 **낙원**으로부터 넷째 외부 공간 수평면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바깥쪽을 향해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정도까지, 지금 상부 **낙원** 위로 그리고 하부 **낙원** 아래로 수직으로 확장한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동안 공간 저장소가 축소한 반면, 전체 수평 공간의 총괄우주와 힘 활동은 팽창했다. 그리하여 전체 팽창_축소 주기를 완성하는 데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0억년보다 약간 더 소요된다.

7. 낙원의 공간 기능

낙원 표면 어디에도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낙원**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똑바로 위를 “쳐다본다면”, 나가거나 들어오는 비충만 공간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할 것인데, 바로 지금, 비충만 공간이 들어오고 있다. 공간은 **낙원**에 접근하지 못하며;오직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만 중앙 **섬**과 접촉한다.

낙원은, 충만한 공간과 비충만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정지된 지대들의, 실제 움직임이 없는 핵이다. 지리적으로, 이 지대들은 **낙원**이 상대적으로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 안에는 아마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줄어드는 공간 움직임의 이 지대들이 충만한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을 인지한다. 충만한 공간의 층{層}들 사이에 비슷한 지대들이 한때 존재했었지만, 이 지대들은 지금 덜 정지된 상태다.

regulation channels, where changes are wrought making pervadable space nonpervadable and vice versa in the contraction and expansion cycles of the cosmos.

11:6.3 (123.5) “Unpervaded” space means: unpervaded by those forces, energies, powers, and presences known to exist in pervaded space. We do not know whether vertical (reservoir) space is destined always to function as the equipoise of horizontal (universe) space; we do not know whether there is a creative intent concerning unpervaded space; we really know very little about the space reservoirs, merely that they exist, and that they seem to counterbalance the space-expansion-contraction cycl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1:6.4 (123.6) The cycles of space respiration extend in each phase for a little more than one billion Urantia years. During one phase the universes expand; during the next they contract. Pervaded space is now approaching the mid-point of the expanding phase, while unpervaded space nears the mid-point of the contracting phase, and we are informed that the outermost limits of both space extensions are, theoretically, now approximately equidistant from Paradise. The unpervaded-space reservoirs now extend vertically above upper Paradise and below nether Paradise just as far as the pervaded space of the universe extends horizontally outward from peripheral Paradise to and even beyond the fourth outer space level.

11:6.5 (124.1) For a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the space reservoirs contract while the master universe and the force activities of all horizontal space expand. It thus requires a little over two billion Urantia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expansion-contraction cycle.

7. SPACE FUNCTIONS OF PARADISE

11:7.1 (124.2) Space does not exist on any of the surfaces of Paradise. If one “looked” directly up from the upper surface of Paradise, one would “see” nothing but unpervaded space going out or coming in, just now coming in. Space does not touch Paradise; only the quiescent *mid-space zones* come in contact with the central Isle.

11:7.2 (124.3) Paradise is the actually motionless nucleus of the relatively quiescent zones existing between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Geographically these zones appear to be a relative extension of Paradise, but there probably is some motion in them.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m, but we observe that these zones of lessened space motion separate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Similar zones once existed between the levels of pervaded space, but these are now less quiescent.

전체 공간의 수직 횡단 부분은 **말타**의 십자가를 약간 닮았을 것인데, 수평축은 충만한 공간을(곧 우주들), 그리고 수직 축은 비충만 공간을(곧 저장소를) 나타낸다. 네 축 사이에 있는 지역들은, 마치 중간_공간 지대들이 충만한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정지된 이 중간_공간 지대들은 **낙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크게 자라고 있으며, 결국 전체 공간의 경계선을 에워싸게 되고, 공간 저장소 및 충만한 공간의 전체 수평 확장, 둘 다를 철저히 포함시킬 것이다.

공간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준절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절대자** 현존도 아니고, **궁극자**의 어떤 기능도 아니다. 공간은 **낙원**이 증여한 것이며, 광우주의 공간세계 및 전체 외부 지역의 공간은, **무조건 절대자**의 선조{先祖} 공간 잠재력으로 실제로 충만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낙원** 주변지역을 향한 가까운 접근으로부터, 이 충만한 공간은 넷째 공간 층(層)을 통해서, 그리고 총괄우주의 주변지역을 지나 밖을 향해서 수평으로 확장하지만, 얼마나 멀리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유한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주변 **낙원**에 거의 접하는 꼭지점을 갖고 **낙원**의 상부 및 하부 표면 둘 다를 향해 직각으로 위치한, V자 모양의 평면을 너희가 상상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원**을 중심으로 타원 회전을 하는 이 평면을 눈에 그려본다면, 충만한 공간의 부피를 그 회전이 대략 윤곽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주들에서 어떤 주어진 위치를 기점으로 해도, 수평 공간에는 상부 한계와 하부 한계가 있다. **오르본톤** 평면을 향해 직각으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위쪽으로든지 아래쪽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다면, 충만한 공간의 상부 또는 하부 경계를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총괄우주의 알려진 범위 안에서, 이 경계선들은 **낙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더 넓게 벌어지며;공간은 두꺼워지는데, 창조계 평면, 즉 우주들이 이루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두꺼워진다.

첫째 외부 공간 층으로부터 일곱 연방우주를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공간 층들 사이에 있는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은, 정지된 공간 활동의 거대한 타원형 지역이다. 이 지대는 규칙적으로 진행하면서 **낙원** 주변을 도는 거대한 성단(星團)을 분리시킨다. 너희는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이 지금 형태를 이뤄 가고 있는 첫째 외부 공간 층을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우주들은, **낙원** 주변을 도는 성단의 거대한 어떤 행렬로서, 위에도 아래에도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들로 막혀있고, 또한 안쪽과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고요한 공간 구역으로 막혀있다.

이처럼 한 공간 층은,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11:7.3 (124.4) The vertical cross section of total space would slightly resemble a Maltese cross, with the horizontal arms representing pervaded (universe) space and the vertical arms representing unpervaded (reservoir) space. The areas between the four arms would separate them somewhat as the midspace zones separate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These quiescent midspace zones grow larger and larger at greater and greater distances from Paradise and eventually encompass the borders of all space and completely incapsulate both the space reservoirs and the entir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11:7.4 (124.5) Space is neither a subabsolute condition within, nor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neither is it a function of the Ultimate. It is a bestowal of Paradise, and the space of the grand universe and that of all outer regions is believed to be actually pervaded by the ancestral space potenc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From near approach to peripheral Paradise, this pervaded space extends horizontally outward through the fourth space level and beyond the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how far beyond we do not know.

11:7.5 (124.6) If you imagine a finite, but inconceivably large, V-shaped plane situated at right angles to both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Paradise, with its point nearly tangent to peripheral Paradise, and then visualize this plane in elliptical revolution about Paradise, its revolution would roughly outline the volume of pervaded space.

11:7.6 (124.7) There is an upper and a lower limit to horizontal space with reference to any given location in the universes. If one could move far enough at right angles to the plane of Orvonton, either up or down, eventually the upper or lower limit of pervaded space would be encountered. Within the known dimension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limits draw farther and farther apart at greater and greater distances from Paradise; space thickens, and it thickens somewhat faster than does the plane of creation, the universes.

11:7.7 (125.1) The relatively quiet zones between the space levels, such as the one separating the seven superuniverses from the first outer space level, are enormous elliptical regions of quiescent space activities. These zones separate the vast galaxies which race around Paradise in orderly procession. You may visualize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here untold universes are now in process of formation, as a vast procession of galaxies swinging around Paradise, bounded above and below by the midspace zones of quiescence and bounded on the inner and outer margins by relatively quiet space zones.

11:7.8 (125.2) A space level thus functions as an

정지상태에 둘러싸여 있는 타원형 운동 지역으로서 작용한다. 움직임과 정지됨의 그런 관계는, 움직임에 대해 저항이 줄어든 어떤 구부러진 공간 경로를 구성하며, 그런 경로를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시공우주 세력과 떠오르는 에너지가 **낙원 섬** 주변을 영구히 회전한다.

총괄우주의 이 교대하는 지대설정은, 성단들의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교대 흐름과 관련해서, 분열 및 분산 활동 지점의 인력 압력 강화를 막도록 고안된, 물리적 인력의 안정화 속에 있는 어떤 요소다. 그런 배열은 반인력{反引力} 작용을 일으키며, 줄이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의 속도에 대해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8. 낙원 인력

피할 수 없는 인력의 끌어당김이, 전체 공간의 전체 우주 세계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붙들고 있다. 인력은, **낙원**의 물리적 현존이 행사하는 전능한 지배력이다. 인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물리적 장식품을 구성하는, 빛나는 별, 떠오르는 항성, 그리고 회전하는 구체들을 묶는 전능한 끈인데, **하나님**은 만물이요, 만물을 채우시며,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존립한다.

절대 물질 인력의 중심 및 초점은 **낙원 섬**인데, **하보나**를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이 이를 보충하고, 상부 및 하부 공간 저장소가 평형을 이루게 한다. 하부 **낙원**에서 나오는 알려진 모든 방사물{放射物}은 총괄우주의 타원 공간 층들의 끝없는 회로에서 작동하는, 중앙 인력 끌어당김에 일정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시공우주 실체 가운데 알려진 형태마다 오랜 세월의 경향, 회전하는 방향, 거대한 타원 진동이 있다.

공간은, 인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지만, 인력의 평형력으로 작용한다. 공간 완충물이 없다면, 폭발 행위가 주변의 천체들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충만된 공간 역시, 물리적 인력, 즉 직선 인력에 반인력{反引力} 영향을 미치며;공간은 그런 인력 행위를 지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중화시킬 수 있다. 절대 인력은 **낙원** 인력이다. 지역 인력 또는 직선 인력은, 에너지 또는 물질의 전기{電氣} 단계와 관련되며;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외부 우주들에서, 즉 적당한 물질화가 발생된 곳이면 어디서나 작동한다.

시공우주 힘, 물리적 에너지, 우주 동력,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의 수많은 형태는, 완전하게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낙원** 인력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를 나타낸다:

elliptical region of motion surrounded on all sides by relative motionlessness. Such relationships of motion and quiescence constitute a curved space path of lessened resistance to motion which is universally followed by cosmic force and emergent energy as they circle forever around the Isle of Paradise.

11:7.9 (125.3) This alternate zoning of the master universe, in association with the alternate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flow of the galaxies, is a factor in the stabilization of physical gravity designed to prevent the accentuation of gravity pressure to the point of disruptive and dispersive activities. Such an arrangement exerts antigravity influence and acts as a brake upon otherwise dangerous velocities.

8. PARADISE GRAVITY

11:8.1 (125.4) The inescapable pull of gravity effectively grips all the worlds of all the universes of all space. Gravity is the all-powerful grasp of the physical presence of Paradise. Gravity is the omnipotent strand on which are strung the gleaming stars, blazing suns, and whirling spheres which constitute the universal physical adornment of the eternal God, who is all things, fills all things, and in whom all things consist.

11:8.2 (125.5) The center and focal point of absolute material gravity is the Isle of Paradise, complemented by the dark gravity bodies encircling Havona and equilibrated by the upper and nether space reservoirs. All known emanations of nether Paradise invariably and unerringly respond to the central gravity pull operating upon the endless circuits of the elliptical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Every known form of cosmic reality has the bend of the ages, the trend of the circle, the swing of the great ellipse.

11:8.3 (125.6) Space is nonresponsive to gravity, but it acts as an equilibrant on gravity. Without the space cushion, explosive action would jerk surrounding space bodies. Pervaded space also exerts an antigravity influence upon physical or linear gravity; space can actually neutralize such gravity action even though it cannot delay it. Absolute gravity is Paradise gravity. Local or linear gravity pertains to the electrical stage of energy or matter; it operates within the central, super-, and outer universes, wherever suitable materialization has taken place.

11:8.4 (125.7) The numerous forms of cosmic force, physical energy, universe power, and various materializations disclose three general, though not perfectly clear-cut, stages of response to Paradise gravity:

1. **인력 이전{以前} 단계 (힘)**. 이것은 시공우주 힘의 에너지_이전{以前} 형태로 들어가는 공간 잠재력으로 개별화하는 첫 단계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격리세력**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원시적 힘_충전 개념과 비슷하다.

2. **인력 단계 (에너지)**. **낙원** 힘 조직가들의 행위가 공간의 힘_충전의 이런 변경을 일으킨다. 이것은 **낙원** 인력의 끌어당김에 대해 반응하는 에너지 체계의 출현을 알린다. 떠오르는 이 에너지는 원래 중성{中性}이지만, 더 많은 변질의 결과로, 소위 음성{陰性} 및 양성{陽性}의 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궁극세력**이라고 부른다.

3. **인력 이후 단계 (우주 동력)**.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_물질이 직선 인력 통제에 대한 반응을 드러낸다. 중앙우주에서 이 물리 체계는 **삼중세력**으로 알려진 삼중 조직이다.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창조계의 초월능력 모체{母體} 체계다. 연방우주들의 물리 체계는 **우주 동력 지휘자**들과 그 동역자들로 인해 활성화된다. 이 물질 조직은 구조 면에서 이중적이며, **인력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하보나**를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은 삼중세력이 아니고 인력세력도 아니며, 이것들의 이끄는 능력은 직선 및 절대 물리 인력 두 형태를 나타낸다.

공간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인력 상호작용에든지 종속되지 않는다. **낙원**의 이 원초적 자질은, 실체의 실제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상대적인 기능적 비영{非靈} 실체에게--곧 힘_에너지의 모든 형태화 그리고 동력과 물질의 조직에게-- 조상이 된다. 공간 잠재력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단어다. 그것은 공간의 조상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는 공간에 실존하는 효력과 잠재력에 대한 관념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낙원**으로부터 발산하고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구성하는, 그 모든 절대 영향 및 잠재력을 포함한다고 이해해도 좋다.

낙원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_물질의 절대 근원 및 영원한 초점{焦點}이다. **무조건 절대자**는 계시자이고 조정자이며, 근원 및 기원을 **낙원**에 둔 것들의 저장소다. **무조건 절대자**의 보편적 현존은, **낙원** 현존의 융통성 있는 균형상대인, 인력 확장의 잠재적 무한성 개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표현이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도움이 된다. 이 예는 또한, 덩어리진 것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서 왜 반드시 인력이 먼저 작용하는지 설명하는데, 이 현상은 **낙원**과 이를 둘러싼 창조계의 차등적 규모를 암시한다.

11:8.5 (126.1) 1. *Pregravity Stages (Force)*. This is the first step in the individuation of space potency into the pre-energy forms of cosmic force. This state is analogous to the concept of the primordial force-charge of space, sometimes called *pure energy* or *segregata*.

11:8.6 (126.2) 2. *Gravity Stages (Energy)*. This modification of the force-charge of space is produced by the a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It signalizes the appearance of energy systems responsive to the pull of Paradise gravity. This emergent energy is originally neutral but consequent upon further metamorphosis will exhibit the so-called negative and positive qualities. We designate these stages *ultima*.

11:8.7 (126.3) 3. *Postgravity Stages (Universe Power)*. In this stage, energy-matter discloses response to the control of linear gravity. In the central universe these physical systems are threefold organizations known as *triat*. They are the superpower mother systems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The physical systems of the superuniverses are mobilized by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These material organizations are dual in constitution and are known as *gravita*. The dark gravity bodies encircling Havona are neither *triat* nor *gravita*, and their drawing power discloses both forms of physical gravity, linear and absolute.

11:8.8 (126.4) Space potency is not subject to the interactions of any form of gravitation. This primal endowment of Paradise is not an actual level of reality, but it is ancestral to all relative functional nonspirit realities — all manifestations of force-energy and the organization of power and matter. Space potency is a term difficult to define. It does not mean that which is ancestral to space; its meaning should convey the idea of the potencies and potentials existent within space. It may be roughly conceived to include all those absolute influences and potentials which emanate from Paradise and constitute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1:8.9 (126.5) Paradise is the absolute source and the eternal focal point of all energy-matter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qualified Absolute is the revealer, regulator, and repository of that which has Paradise as its source and origin.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seems to be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a potential infinity of gravity extension, an elastic tension of Paradise presence. This concept aids us in grasping the fact that everything is drawn inward towards Paradise. The illustration is crude but nonetheless helpful. It also explains why gravity always acts preferentially in the plane perpendicular to the mass, a phenomenon indicative of the differential dimensions of Paradise and the surrounding creations.

9. 낙원의 독특성

모든 영 인격체에게, **낙원**은 원초적으로 기원되는 영역이자 운명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방우주의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 모두가 즉시 **낙원**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든가, **낙원**은 모든 초물질 인격체가 바라는 목표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낙원은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며; 우주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심지어 영원한 **하보나** 우주의 실제 부분도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 **섬**을 신성한 우주에 포함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낙원**은 영원하고 독자적인 실존이다.

영원한 과거에,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영 {靈} 자아의 무한한 인격을 **영원한 아들**의 존재 속에 표현했을 때, **아버지**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없는 자아의 무한성 잠재력을 **낙원**으로 드러냈다. 인격없고 비영적인 **낙원**은, **원본 아들**을 영존시킨 **아버지**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긴 반응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인격있는 그리고 인격없는, 영적{靈的}인 그리고 비영적인-- 두 실제 국면에 실체성을 투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동하려는 의지에 직면해서, 그들 사이의 균형상태가 **공동 행위자**뿐 아니라, 물질 세계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있는 중앙우주를 실존하도록 했다.

실체가 인격있는 존재와 인격없는 존재로 (곧 **영원한 아들**과 **낙원**으로) 분리될 때, 어떻게든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인격없는 그것을 “**신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격** 행동의 에너지와 물질적 반응을 도저히 **신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신격**은 **신격**이 아닌 것을 많이 기원시킬지도 모르고, **낙원**은 **신격**이 아니며; 자각하지도 않는데, 필사적 사람이 이런 표현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낙원은, 어떤 존재 또는 어떤 살아있는 실체에 대해서든지 조상이 되지 않으며; 창조자가 아니다. 인격과 정신_영의 관계는 전달될 수 있지만, 원형{原型}은 그렇지 않다. 원형은 결코 닮은꼴이 아니며; 닮은꼴은 복제품이다--즉 재생산한 것이다. **낙원**은 절대 원형이며; **하보나**는 이 잠재력이 실재{實在}로서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의 주거지는 중앙에 있고 영원한데, 영화롭고 이상적이다. 그의 집은 모든 우주 본부 세계들을 향한 아름다운 원형{原型}이며; 그에게 가까이 있는 거주지인 중앙우주는, 그 이상{理想}과 조직 그리고 궁극 운명에서 모든 우주를 위한 원형이다.

낙원은 모든 인격체 활동의 우주 본부이고, 모든 힘_공간과 에너지 형태화의 근원이요_중심이다. 존재해 왔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는 아

9. THE UNIQUENESS OF PARADISE

11:9.1 (126.6) Paradise is unique in that it is the realm of primal origin and the final goal of destiny for all spirit personalities. Although it is true that not all of the lower spirit beings of the local universes are immediately destined to Paradise, Paradise still remains the goal of desire for all supermaterial personalities.

11:9.2 (126.7) Paradise is the geographic center of infinity; it is not a part of universal creation, not even a real part of the eternal Havona universe. We commonly refer to the central Isle as belonging to the divine universe, but it really does not. Paradise is an eternal and exclusive existence.

11:9.3 (127.1) In the eternity of the past, when the Universal Father gave infinite personality expression of his spirit self in the being of the Eternal Son, simultaneously he revealed the infinity potential of his nonpersonal self as Paradise. Nonpersonal and nonspiritual Paradise appears to have been the inevitable repercussion to the Father's will and act which eternalized the Original Son. Thus did the Father project reality in two actual phases —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the spiritual and the nonspiritual. The tension between them, in the face of will to action by the Father and the Son, gave existence to the Conjoint Actor and the central universe of material worlds and spiritual beings.

11:9.4 (127.2) When reality is differentiated into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Eternal Son and Paradise), it is hardly proper to call that which is nonpersonal “Deity” unless somehow qualified. The energy and material repercussions of the acts of Deity could hardly be called Deity. Deity may cause much that is not Deity, and Paradise is not Deity; neither is it conscious as mortal man could ever possibly understand such a term.

11:9.5 (127.3) Paradise is not ancestral to any being or living entity; it is not a creator. Personality and mind-spirit relationships are *transmissible*, but pattern is not. Patterns are never reflections; they are duplications — reproductions.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Havona is an exhibit of these potentials in actuality.

11:9.6 (127.4) God's residence is central and eternal, glorious and ideal. His home is the beautiful pattern for all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is immediate indwelling is the pattern for all universes in their ideals, organization, and ultimate destiny.

11:9.7 (127.5) Paradise is the universal headquarters of all personality activities and the source-center of all force-space and energy manifestations.

직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들이 중앙 거주 장소로부터 도래해 왔거나, 지금 도래하고 있거나, 또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낙원**은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모든 인격체가 원초적으로 기원된 곳이다.

결국, 영원한 **낙원**에 관하여 필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이 완전한 거주지가, **하나님**의 필사적이고 물질적인 아들, 즉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불멸하는 혼의, 실제적이고 멀리 떨어진 종착역이라는 사실이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생애를 지지해 온,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 마다, 신성{神性}을 추구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낙원**으로 가는 길고 긴 여행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공간의 낮은 구체로부터 상승해서, **낙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동물에서 기원된 존재가 서게 될 때, 그런 성취는 지존성의 한계선에 다가가는 영적 변형의 실체를 나타낸다.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Everything which has been, now is, or is yet to be, has come, now comes, or will come forth from this central abiding place of the eternal Gods. Paradise is the center of all creation, the source of all energies, and the place of primal origin of all personalities.

11:9.8 (127.6) After all, to mortal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eternal Paradise is the fact that this perfect abode of the Universal Father is the real and far-distant destiny of the immortal souls of the mortal and material sons of God,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Every God-knowing mortal who has espoused the career of doing the Father's will has already embarked upon the long, long Paradise trail of divinity pursuit and perfection attainment. And when such an animal-origin being does stand, as countless numbers now do, before the Gods on Paradise, having ascended from the lowly spheres of space, such an achievement represents the reality of a spiritual transformation bordering on the limits of supremacy.

11:9.9 (127.7)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12편. 온갓 우주

⇨ 011

유랜시아 책

013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 12편
온갓 우주

섹션

소개

1. 총괄우주의 공간 총
2.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
3. 우주의 인력
4. 공간과 움직임
5. 공간과 시간
6. 우주의 전면통제
7. 부분과 전체
8. 물질, 정신, 및 영
9. 인격있는 실체

소개

만유의 아버지의 광범한 창조가 얼마나 광활한지, 유한한 상상력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총괄우주의 거대함은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의 개념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사 정신은 우주들의 계획과 준비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며; 너희는 그 물리적 조직과 놀라운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시간세계의 일곱 연방우주(聯邦宇宙)와 영원한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집단의 지성 존재들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잠재력에서,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창조를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전체 물질 창조를 연구하고 관찰할 때, 너희의 유한한 정신에게는 그것이 비교적 제한 없고, 사실상 끝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도 물질 창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안다.

물리 법칙을 연구하고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표현하는

PAPER 12

THE UNIVERSE OF 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2.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3. Universal Gravity
4. Space and Motion
5. Space and Time
6. Universal Overcontrol
7. The Part and the Whole
8. Matter, Mind, and Spirit
9. Personal Realities

INTRODUCTION

12:0.1 (128.1) THE immensity of the far-flung cre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utterly beyond the grasp of finite imagination; the enormousness of the master universe staggers the concept of even my order of being. But the mortal mind can be taught much about the plan and arrangement of the universes; you can know something of their physical organization and marvelous administration; you may learn much about the various groups of intelligent beings who inhabit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12:0.2 (128.2) In principle, that is, in eternal potential, we conceive of material creation as being infinite because the Universal Father is actually infinite, but as we study and observe the total material creation, we know that at any given moment in time it is limited, although to your finite minds it is comparatively limitless, virtually boundless.

12:0.3 (128.3) We are convinced, from the study of physical law and from the observation of the starry

시공우주가 아직 완결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즉 **무한자**의 시공우주 잠재력 대부분이 아직도 억제돼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창조된 존재들에게는, 총괄우주가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으며, 물질 창조에는 여전히 물리적 한계가 있고, 영원한 목적을 가진 체험적 계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 총괄우주의 공간 층

온갖 우주는, 무한한 평면 또는 끝없는 입방체가 아니고, 무제한의 궤도{軌道}도 아니며, 분명히 용적을 갖고 있다. 힘_에너지와 물질_동력의 거대한 집합체 전부가, 궁극적으로 한 공간 단위로서, 즉 조직되고 조화된 전체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물리 조직 및 경영 법칙이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관측 가능한 물질 창조 행태는, 물리적 우주가 분명히 제한돼 있다는 증거다. 모든 형태의 기초 에너지가, **낙원** 인력의 끊임없고 절대적인 끌어당김에 이끌려서, 총괄우주 공간 층들의 곡선 경로를 따라 주변을 계속 돈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 우주가 원형{圓形}이고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총괄우주의 연속되는 공간 층들이, 충만한 공간--곧 이미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거나, 아직 조직되지 않았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전체 창조--의 주요 구획{區劃}들을 구성한다. 만약 총괄우주가 상대적으로 정지된 지대들과 교대하면서, 움직임에 대해 점점 덜 저항하는 일련의 타원 공간 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시공우주 에너지 가운데 일부가 무한한 범위 위에 발사됨, 즉 흔적 없는 공간 속으로 직선 경로 위에 발사됨을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힘, 에너지, 또는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것들은 거대한 공간 회로{回路} 행로를 따라서, 늘 소용돌이치고 항상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충만한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하여 **낙원**으로부터 밖을 향해 진행하면서, 총괄우주는 여섯 동심{同心} 타원, 즉 중앙 **섬**을 도는 여러 공간 층 안에서 실존한다:

1. 중앙우주 --하보나.
2. 일곱 연방우주.
3. 첫째 외부 공간 층.
4. 둘째 외부 공간 층.
5. 셋째 외부 공간 층.
6. 넷째이자 최외부의 공간 층.

realms, that the infinite Creator is not yet manifest in finality of cosmic expression, that much of the cosmic potential of the Infinite is still self-contained and unrevealed. To created beings the master universe might appear to be almost infinite, but it is far from finished; there are still physical limits to the material creation, and the experiential revelation of the eternal purpose is still in progress.

1.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12.1.1 (128.4)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not an infinite plane, a boundless cube, nor a limitless circle; it certainly has dimensions. The laws of physica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prove conclusively that the whole vast aggregation of force-energy and matter-power functions ultimately as a space unit, as an organized and co-ordinated whole. The observable behavior of the material creation constitutes evidence of a physical universe of definite limits. The final proof of both a circular and delimited universe is afforded by the, to us, well-known fact that all forms of basic energy ever swing around the curved path of th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in obedience to the incessant and absolute pull of Paradise gravity.

12.1.2 (128.5) The successiv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constitute the major divisions of pervaded space — total creation, organized and partially inhabited or yet to be organized and inhabited. If the master universe were not a series of elliptical space levels of lessened resistance to motion, alternating with zones of relative quiescence, we conceive that some of the cosmic energies would be observed to shoot off on an infinite range, off on a straight-line path into trackless space; but we never find force, energy, or matter thus behaving; ever they whirl, always swinging onward in the tracks of the great space circuits.

12.1.3 (129.1) Proceeding outward from Paradise through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the master universe is existent in six concentric ellipses, the space levels encircling the central Isle:

12.1.4 (129.2) 1. The Central Universe — Havona.

12.1.5 (129.3) 2. The Seven Superuniverses.

12.1.6 (129.4) 3.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2.1.7 (129.5) 4. The Second Outer Space Level.

12.1.8 (129.6) 5. The Third Outer Space Level.

12.1.9 (129.7) 6.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중앙우주 **하보나**는, 한때 존재하는 창조물이 아니며; 영원한 실존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우주는, 장엄한 완전성을 갖는 10억 구체로 구성되며,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보나** 중심에는, 정지돼 있고 절대로 안정된 **낙원 섬**이 있는데, 21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우주 가장자리 주변을 둘러싼 흑암 인력 본체들의 거대한 질량 때문에, 이 중앙 창조 내용물 질량은 광우주의 일곱 구역 전체의 알려진 총 질량을 훨씬 뛰어넘는다.

영원한 **섬**을 돌고 있는 영원한 우주인 **낙원 하보나 체계**는, 총괄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하며; 일곱 연방우주 전체와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은, **낙원** 위성과 **하보나** 세계라는 거대한 중앙 집합체 주변에 확립된 궤도에서 회전한다.

일곱 연방우주는 근본 물리 조직이 아니며; 이것들의 경계선은 어디서도 성운 집합체를 나누지 않으며, 또한 이것들은 기본 창조 단위인 지방우주를 가로지르지도 않는다. 각 연방우주는,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하보나** 이후 창조물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짓고 있는 지리적 공간에 불과하며, 각 연방우주는, 포함된 지방우주 숫자에서, 그리고 포함된 공간에서 거의 똑같다. 너희 지방우주 **네바돈**은, 일곱째 연방우주인 **오르본톤**에서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것들 가운데 하나다.

광우주는, 지금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이다. **광우주**는 일곱 연방우주로 구성돼 있는데, 중앙 창조계의 영원한 구체들은 물론이고, 인간이 거주하는 약 7조 개 행성의 총 진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잠정적인 이 추정치는, 건축양식 경영 구체들은 제외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주들 밖에 있는 조직되지 않은 집단들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광우주의 불완전한 현 경계선, 즉 불규칙적이고 마무리되지 않은 그 주변지역은, 전체 천문학적 계획의 매우 불안정한 주변상황과 함께, 별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는 일곱 연방우주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안에서, 즉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밖을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결국 조직되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의 외부 한계에 도달하며; 광우주의 외부 한계선에 도달한다. 그리고 너희 지방우주가 파란만장하게 실존해 온 곳은, 그런 장엄한 창조계 중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이 외부 경계선 근처다.

외부 공간 층들. 공간 멀리에, 인간이 거주하는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힘과 물질화 되는 에너지로 이뤄진, 방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로{回路}들을 집합

12.1.10 (129.8) *Havona*, the central universe, is not a time creation; it is an eternal existence. This never-beginning, never-ending universe consists of one billion spheres of sublime perfection and is surrounded by the enormous dark gravity bodies. At the center of Havona is the stationary and absolutely stabilized Isle of Paradise, surrounded by its twenty-one satellites. Owing to the enormous encircling masses of the dark gravity bodies about the fringe of the central universe, the mass content of this central creation is far in excess of the total known mass of all seven sectors of the grand universe.

12.1.11 (129.9) *The Paradise-Havona System*, the eternal universe encircling the eternal Isle, constitutes the perfect and eternal nucleus of the master universe;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and all regions of outer space revolve in established orbits around the gigantic central aggregation of the Paradise satellites and the Havona spheres.

12.1.12 (129.10)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not primary physical organizations; nowhere do their boundaries divide a nebular family, neither do they cross a local universe, a prime creative unit. Each superuniverse is simply a geographic space clustering of approximately one seventh of the organized and partially inhabited post-Havona creation, and each is about equal in the number of local universes embraced and in the space encompassed. *Nebadon*, your local universe, is one of the newer creations in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12.1.13 (129.11) *The Grand Universe* is the present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t consis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ith an aggregate evolutionary potential of around seven trillion inhabited planets, not to mention the eternal spheres of the central creation. But this tentative estimate takes no account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spheres, neither does it include the outlying groups of unorganized universes. The present ragged edge of the grand universe, its uneven and unfinished periphery, together with the tremendously unsettled condition of the whole astronomical plot, suggests to our star students that eve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as yet, uncompleted. As we move from within, from the divine center outward in any one direction, we do, eventually, come to the outer limits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we come to the outer limits of the grand universe. And it is near this outer border, in a far-off corner of such a magnificent creation, that your local universe has its eventful existence.

12.1.14 (129.12) *The Outer Space Levels.* Far out in space, at an enormous distance from the seven inhabited superuniverses, there are assembling vast and unbelievably stupendous circuits of force

시키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의 에너지 회로들과, 이 거대한 힘 활동 외부 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 지대가 있는데, 폭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평균 약 40만 광년이다. 이 공간 지대들은 별 먼지--곧 시공우주 안개--와 상관없다. 이 현상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곱 연방우주를 돌고 있는 비교적 고요한 이 지대 안에 존재하는, 엄밀한 상태의 공간 세력들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 광우주 주변지역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작용 지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는데, 이 지대의 부피와 밀도는 2천500만 광년이 넘는 거리까지 증가한다. 힘을 솟구치게 하는 이 거대한 회전구름은 첫 외부 공간 층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이미 알려지고 조직된,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 전체를 돌고 있는, 시공우주 활동이 있는 연속된 지대다.

더 거대한 활동이 이 지역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첫 외부 공간 층 너머에 있는 현상 가운데 최고외부 범위를 5천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우버사** 물리학자들이, 일찍이 힘 형태화의 증거물을 탐지했기 때문이다. 총괄우주 중에서 둘째 외부 공간이라는 물질 창조계가 조직되고 있음을, 이 활동이 틀림없이 예측하게 한다.

중앙우주는 영원성에 속하는 창조물이며; 일곱 연방우주는 시간세계에서 창조된 것이며; 4개의 외부 공간 층은 창조의 궁극성을 분명히 귀착시키고_진화시키게 돼있다. 그리고 **무한자**가 무한성에 미치는 충분한 표현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넷째이자 가장 외부에 있는 공간 층을 넘어서는 부가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창조, 즉 언제나_팽창할 가능성이 있는, 결코 끝나지 않는 무한성의 우주를 가정한다. **창조주**의 무한성이나 창조의 잠재적 무한성을 어떻게 제한시키는지 우리는 이론상으로 알지 못하지만, 총괄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경영되 다시피, 총괄우주가 한계를 가졌고, 분명히 제한돼 있고, 열린 공간이 그 외부 가장자리를 막고 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2.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

점점 더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공간의 신비한 범위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거기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 우주들이 놀랍게 진화하는 것을 바라볼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불가사의한 계획이 힘차게 결실하는 과정을 응시하고 있음을 실감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는 이 외부 지역들의 현재 특질인 방대한 에너지 형태화 전반에 걸쳐 여기저기서, 어떤 **낙원** 인격체의 영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물을 갖고 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일

and materializing energies. Between the energy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is gigantic outer belt of force activity, there is a space zone of comparative quiet, which varies in width but averages about four hundred thousand light-years. These space zones are free from star dust — cosmic fog. Our students of these phenomena are in doubt as to the exact status of the space-forces existing in this zone of relative quiet which encircles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about one-half million light-years beyond the periphery of the present grand universe we observe the beginnings of a zone of an unbelievable energy action which increases in volume and intensity for over twenty-five million light-years. These tremendous wheels of energizing forces are situated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a continuous belt of cosmic activity encircling the whole of the known,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12:1.15 (130.1) Still greater activities are taking place beyond these regions, for the Uversa physicists have detected early evidence of force manifestations more than fifty million light-years beyond the outermost ranges of the phenomena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These activities undoubtedly presage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creations of the second outer space level of the master universe.

12:1.16 (130.2) The central universe is the creation of eternity;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the creations of time; the four outer space levels are undoubtedly destined to eventuate-evolve the ultimacy of creation. And there are those who maintain that the Infinite can never attain full expression short of infinity; and therefore do they postulate an additional and unrevealed creation beyond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a possible ever-expanding, never-ending universe of infinity. In theory we do not know how to limit either the infinity of the Creator or the potential infinity of creation, but as it exists and is administered, we regard the master universe as having limitations, as being definitely delimited and bounded on its outer margins by open space.

2.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2.1 (130.3) When Urantia astronomers peer through their increasingly powerful telescopes into the mysterious stretches of outer space and there behold the amazing evolution of almost countless physical universes, they should realize that they are gazing upon the mighty outworking of the unsearchabl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rue, we do possess evidences which are suggestive of the presence of certain Paradise personality influences here and there throughout

곱 연방우주의 외부 경계선 너머로 확장하는 공간 지역들은 대체로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인식된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경계선 밖에 있는 두 세 성운(星雲)밖에 볼 수 없을 지라도, 너희가 가진 망원경은 형성 과정에 있는 이런 수백만 개의 물리적 우주를 분명히 드러낸다. 너희가 현 시대에 망원경으로 탐색할 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별들이 가득한 영역들 대부분은 **오르본톤** 안에 있지만, 사진 기법을 이용하는 더 큰 망원경은, 광우주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서 외부 공간 범위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인데, 거기서는 무수한 우주들이 조직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수백만 개의 다른 우주가 있다.

멀리 뻗어나간 외부 공간에 있는, 적어도 3억 7천 5백만 개 이상의 새로운 성단(星團)을,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망원경이,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의 경탄하는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더 강력한 이 망원경은, 외부 공간에 있다고 전에 믿었던 섬 같은 여러 우주가, 실제로는 **오르본톤**에 속한 성단 체계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일곱 연방우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 주변지역은 점점 팽창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운들이 끊임없이 안정을 찾고 조직되고 있으며;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은하계 바깥에 있다고 간주하는 일부 성운이, 실제로는 **오르본톤** 외부 경계선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우버사의 별 연구가들은, 광우주가 일련의 별과 행성 다발들의 조상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관찰하는데, 이것들은 수많은 외부 우주의 동심 고리들로서, 현재 인간거주 창조물 둘레를 완벽하게 둘러싼다. **우버사의** 물리학자들은, 외부에 있는 이 미지의 지역에 속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포함된 물질 질량 및 에너지 축적량(蓄積量)의 여러 배에 이미 달했다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 외부 공간 층들에 있는 시공우주 세력을 변질시키는 것이, **낙원** 힘 조직가들의 역할이라고 들었다. 또한 우리는, 광우주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 물리적 에너지의 선조가 이 세력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무튼 **오르본톤** 동력 지휘자들은 멀리_떨어진 이 영역과 아무 관계없으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동은,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계의 동력 회로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돼 있지 않다.

우리는 외부 공간의 이 거대한 현상의 의미심장함을 거의 알지 못한다. 미래의 더 큰 창조물이 형성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분간할 수 있으며,

the vast energy manifestations now characteristic of these outer regions, but from the larger viewpoint the space regions extending beyond the outer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constituting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2.2 (130.4) Although the unaided human eye can see only two or three nebulae outside the bord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your telescopes literally reveal millions upon millions of these physical universes in process of formation. Most of the starry realms visually exposed to the search of your present-day telescopes are in Orvonton, but with photographic technique the larger telescopes penetrate far beyond the borders of the grand universe into the domains of outer space, where untold universes are in process of organization. And there are yet other millions of universes beyond the range of your present instruments.

12:2.3 (130.5) In the not-distant future, new telescopes will reveal to the wondering gaze of Urantian astronomers no less than 375 million new galaxies in the remote stretches of outer space. At the same time these more powerful telescopes will disclose that many island universes formerly believed to be in outer space are really a part of the galactic system of Orvonto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still growing; the periphery of each is gradually expanding; new nebulae are constantly being stabilized and organized; and some of the nebulae which Urantian astronomers regard as extragalactic are actually on the fringe of Orvonton and are traveling along with us.

12:2.4 (131.1) The Uversa star students observe that the grand universe is surrounded by the ancestors of a series of starry and planetary clusters which completely encircle the present inhabited creation as concentric rings of outer universes upon universes. The physicists of Uversa calculate that the energy and matter of these outer and uncharted regions already equal many times the total material mass and energy charge embraced in all seven superuniverses. We are informed that the metamorphosis of cosmic force in these outer space levels is a fun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We also know that these forces are ancestral to those physical energies which at present activate the grand universe. The Orvonton power directors, however,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far-distant realms, neither are the energy movements therein discernibly connected with the power circuits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12:2.5 (131.2) We know very little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tremendous phenomena of outer space. A greater creation of the future is in process of formation. We can observe its immensity, we can

그 웅장한 규모를 느낄 수 있지만, 그밖에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이 영역을 아는 것보다 더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과 거의 비슷한 물질 존재도, 천사 또는 다른 영 피조물도, 성운과 항성과 행성들로 이뤄진 이 외부 고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이 영토에는 연방우주 정부의 관할권과 경영이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창조 유형, 즉 집결하고 있는 **완결성 취 단체**의 미래 활동의 모습이 되도록 예정된, 그런 우주 체제가 형성과정에 있다고 **오르본톤** 전역에서 믿으며;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끝없는 과거가 너희의 선조와 선배들을 위해 간직했던 것과 똑같이 매혹적인 광경을, 끝없는 미래가 너희 모두를 위해 간직할지도 모른다.

3. 우주의 인력

모든 형태의 힘과_에너지는, --물질이든지, 정신이든지, 영이든지-- 보편적으로 현존하는 그 지배력에 똑같이 종속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력 {引力}이라고 부른다. 인격 역시 인력에--곧 **아버지**가 독점하는 회로에-- 민감하지만; 비록 **아버지만**이 이 회로를 활용하더라도, **아버지**는 다른 회로들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만유의 아버지**는 무한하고, 총괄우주에서 네 가지 절대_인력 회로 *여섯* 활동하신다:

1.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인력.
2.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3.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
4. **낙원 섬**의 시공우주 인력.

이 네 가지 회로는 하부 **낙원** 힘 중심에 관련돼 있지 않으며; 힘도 에너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력 회로도 아니다. 이것들은 절대 **현존** 회로이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간 및 공간과 상관없다.

이 점에서, 인력 연구단체들이 최근 수천 년 동안 **우버사**에서 얻은 어떤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일은 흥미롭다. 노련한 이 일꾼 집단은 총괄우주의 상이한 인력 체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 **물리적 인력**. 광우주의 물리적_인력 수용력 전체 합계에 대한 추정치를 공식화함으로써, 그들은 현재 작동하는 절대 인력 현존의 추정된 합계와 이 결론을 수고스럽게 비교해 왔다. 이 계산은 광우주에 있는 전체 인력 작용이, **낙원**의 추정된 인력 흡인력 {吸引力} 가운데 매우 작은 부분임을 나타내는데, 우주 물질의 물리적 기본 단위들의 인력 반응에 기초해서 계산됐다. 이 검사관

discern its extent and sense its majestic dimensions, but otherwise we know little more about these realms than do the astronomers of Urantia. As far as we know, no material beings on the order of humans, no angels or other spirit creatures, exist in this outer ring of nebulae, suns, and planets. This distant domain is beyond the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2:2.6 (131.3) Throughout Orvonton it is believed that a new type of creation is in process, an order of universes destined to become the scene of the future activities of the assembling Corps of the Finality; and if our conjectures are correct, then the endless future may hold for all of you the same enthralling spectacles that the endless past has held for your seniors and predecessors.

3. UNIVERSAL GRAVITY

12:3.1 (131.4) All forms of force-energy — material, mindal, or spiritual — are alike subject to those grasps, those universal presences, which we call gravity. Personality also is responsive to gravity — to the Father's exclusive circuit; but though this circuit is exclusive to the Father, he is not excluded from the other circuits; the Universal Father is infinite and acts over *all* four absolute-gravity circuits in the master universe:

- 12:3.2 (131.5) 1. The Personality Gravity of the Universal Father.
- 12:3.3 (131.6) 2.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 12:3.4 (131.7) 3.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 12:3.5 (131.8) 4. The Cosmic Gravity of the Isle of Paradise.

12:3.6 (131.9) These four circuits are not related to the nether Paradise force center; they are neither force, energy, nor power circuits. They are absolute *presence* circuits and like God ar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12:3.7 (132.1) In this connection it is interesting to record certain observations made on Uversa during recent millenniums by the corps of gravity researchers. This expert group of workers has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regarding the different gravity systems of the master universe:

12:3.8 (132.2) 1. *Physical Gravity*. Having formulated an estimate of the summation of the entire physical-gravity capacity of the grand universe, they have laboriously effected a comparison of this finding with the estimated total of absolute gravity presence now operative. These calculations indicate that the total gravity action on the grand universe is a very small part of the estimated

들은 중앙우주와 이를 둘러싼 일곱 연방우주가, 현재 시간에 **낙원** 절대_인력 지배의 유효한 기능 발휘 중에서 약 5퍼센트만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해서 계산할 때, 현 시점에 **낙원 섬**의 유효한 시공우주_인력 작용 중에서 약 95퍼센트는, 현재 조직돼 있는 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질 체계들을 통제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계산은 모두 절대 인력을 참조한 것이며;직선 인력은 오직 실제 **낙원** 인력을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는 상호작용 현상이다.

2. **영적 인력** 동일한 비교 추정 및 계산 기법으로, 이 연구가들은 영 인력의 현재 반응 수용력을 탐구해 왔고, **단독 사자**들 및 다른 영 인격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2 근원 및 중심**의 유효한 영 인력을 합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광우주에 실제로 있고 작용하는 영 인력의 현존에 대해서, 유효한 영 인력의 현재 총합이라고 가정한 것과 대략 동일한 값을 그들이 발견함에 주목하는 것은 가장 유익하다. 바꿔 말하면:현 시점에, 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해서 계산한, **영원한 아들**의 전체 영 인력은 실제로, 광우주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관측할 수 있다. 이 발견 결과가 믿을 만하다면, 우리는 지금 외부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들이, 현 시점에 전적으로 비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대한 에너지 형태화가 물리적으로 실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 영을_부여받은 존재들이 어찌하여 이런 에너지 형태화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것이다.

3. **정신 인력** 비교해서 계산하는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은 정신_인력 현존과 반응의 문제에 도전해 왔다. 정신_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단위에 도달하려는 노력에는, 동력 지휘자들과 그 동역자들 안에서 발견된 정신 유형이 방해 요인이라는 것이 판명됐더라도, 세 물질적 유형과 세 영적 유형의 정신력을 평균해서 정신의 추정치 단위를 얻었다. 이 전체성 이론에 따라서, 정신_인력 기능을 위해 **제3 근원 및 중심**의 현재 수용력에 대한 측정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발견 결과가 비록 물질 및 영 인력 추정치의 경우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매우 유익하며,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조사관들은, **공동 행위자**의 지적 끌어당김에 대한 정신_인력 반응 중에서 약 85퍼센트가, 실존하는 광우주에서 기원된다고 추론한다. 이것은 정신 활동이 외부 공간 영역들 전역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물리적 활동과 관련해서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것이다. 이 평가가 정확하

gravity pull of Paradise,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gravity response of basic physical units of universe matter. These investigators reach the amazing conclusion that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urrounding seven superuniverses are at the present time making use of only about five per cent of the active functioning of the Paradise absolute-gravity grasp. In other words: At the present moment about ninety-five per cent of the active cosmic-gravity action of the Isle of Paradise, computed on this totality theory, is engaged in controlling material systems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s. These calculations all refer to absolute gravity; linear gravity is an interactive phenomenon which can be computed only by knowing the actual Paradise gravity.

12:3.9 (132:3) 2. *Spiritual Gravity*. By the same technique of comparative estimation and calculation these researchers have explored the present reaction capacity of spirit gravity and, with the co-operation of Solitary Messengers and other spirit personalities, have arrived at the summation of the active spirit gravity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nd it is most instructive to note that they find about the same value for the actual and functional presence of spirit gravity in the grand universe that they postulate for the present total of active spirit gravity. In other words: At the present time practically the entir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computed on this theory of totality, is observable as functioning in the grand universe. If these findings are dependable, we may conclude that the universes now evolving in outer space are at the present time wholly nonspiritual. And if this is true, it would satisfactorily explain why spirit-endowed beings are in possession of little or no information about these vast energy manifestations aside from knowing the fact of their physical existence.

12:3.10 (132:4) 3. *Mind Gravity*. By these same principles of comparative computation these experts have attacked the problem of mind-gravity presence and response. The mind unit of estimation was arrived at by averaging three material and three spiritual types of mentality, although the type of mind found in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proved to be a disturbing factor in the effort to arrive at a basic unit for mind-gravity estimation. There was little to impede the estimation of the present capac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for mind-gravity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theory of totality. Although the findings in this instance are not so conclusive as in the estimates of physical and spirit gravity, they are, comparatively considered, very instructive, even intriguing. These investigators deduce that about eighty-five per cent of the mind-gravity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drawing of the Conjoint Actor takes origin in the existing grand universe. This would suggest the

다고 하기에는 아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광우주의 현 외부 한계선을 넘어서는 공간 층들에서 지성 힘 조직가들이 지금 우주 진화를 지휘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일치한다. 이 가정된 지성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그 지성은 영_인력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은, 기껏해야 가정된 법칙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다. 우리는 그 계산이 제법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영 존재가 외부 우주에 자리를 잡았더라도, 그들의 집단 현존은 그런 거대한 측정을 수반하는 계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인적 인력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회로를 인식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질적 또는 양적 실체를 측정할 수 없다.

possibility that mind activities are involved in connection with the observable physical activities now in progress throughout the realms of outer space. While this estimate is probably far from accurate, it accords, in principle, with our belief that intelligent force organizers are at present directing universe evolution in the space levels beyond the present outer limits of the grand universe. Whatever the nature of this postulated intelligence, it is apparently not spirit-gravity responsive.

12:3.11 (133.1) But all these computations are at best estimates based on assumed laws. We think they are fairly reliable. Even if a few spirit beings were located in outer space, their collective presence would not markedly influence calculations involving such enormous measurements.

12:3.12 (133.2) *Personality Gravity* is noncomputable. We recognize the circuit, but we cannot measure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realities responsive thereto.

4. 공간과 움직임

모든 시공우주 에너지 단위는, 우주 궤도 주변을 도는 동안, 예비 공전을 하면서 그 임무 이행에 맞물려 있다. 공간의 우주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체계 및 세계들은 모두 공전하는 구체인데, 총괄우주 공간 층의 끝없는 회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인력의 중심인 영원한 **낙원 섬**, 즉 **하보나**의 정중앙 외에는 총괄우주 전체에서 아무 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

무조건 절대자는 기능적으로 공간에 제한돼 있지만,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이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리 확신하지는 못한다. 움직임이 원래 거기에 내재하는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움직임이 공간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심지어 공간의 움직임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무조건 절대자**의 관계에 관해 그리 확신하지는 못한다. 현재의 일곱 연방우주 경계선 너머 밖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힘_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거대한 활동의 진정한 원인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움직임의 근원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1.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개시한다고 생각한다.

2. **공동 행위자**가 공간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3. **우주 절대자**가 최초의 움직임을 기원시키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으로 기원되는 모든 균형상태를 균등하게 하고 통제한다.

외부 공간에서, 지금 별모양을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우주 회전구름의 생성을, 힘 조

4. SPACE AND MOTION

12:4.1 (133.3) All units of cosmic energy are in primary revolution, are engaged in the execution of their mission, while swinging around the universal orbit. The universes of space and their component systems and worlds are all revolving spheres, moving along the endless circuits of the master universe space levels. Absolutely nothing is stationary in all the master universe except the very center of Havona,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center of gravity.

12:4.2 (133.4) The Unqualified Absolute is functionally limited to space, but we are not so sure about the relation of this Absolute to motion. Is motion inherent therein? We do not know. We know that motion is not inherent in space; even the motions of space are not innate. But we are not so sure about the relation of the Unqualified to motion. Who, or what, is really responsible for the gigantic activities of force-energy transmutations now in progress out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Concerning the origin of motion we have the following opinions:

12:4.3 (133.5) 1. We think the Conjoint Actor initiates motion *in* space.

12:4.4 (133.6) 2. If the Conjoint Actor produces the motions of space, we cannot prove it.

12:4.5 (133.7) 3. The Universal Absolute does not originate initial motion but does equalize and control all of the tensions originated by motion.

12:4.6 (133.8) In outer space the force organizers are apparent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the gigantic universe wheels which are now in

직가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작용하는 그들의 역량은,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더러 변형함으로 가능하게 돼왔음에 틀림없다.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無}이며--공음{陰}이며; 오직 양{陽}이고 비공간인 어떤 것과 관련될 때에만 실존한다. 아무튼, 공간은 실재한다. 공간은 움직임을 포함하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움직이기도 한다. 공간의 움직임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1차 움직임--공간 호흡 작용, 공간 자체의 움직임.

2. 2차 움직임--연속되는 공간 층들의 방향이 번갈아 바뀌는 회전.

3. 상대적 움직임--**낙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1차 및 2차 움직임은 절대적인데, 정지된 **낙원**과 관계되는 움직임이다.

4. 모든 다른 움직임을 조화시키려고 고안된, 보상하거나 상관하는 운동.

너희의 태양 및 태양과 관련된 행성들의 현 관계는, 공간에서 많은 상대적 및 절대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편, 천체 관찰자들에게, 너희가 비교적 공간에 정지돼 있고, 공간 안에서 바깥쪽으로 너희의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의 별 무리와 흐름들이 끊임없이_증가하는 속도로 밖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충만한 전체 공간에 있는 물리 창조계들이 지금 바깥쪽으로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너희가 속해있는 지방우주는(곧 **네바돈**은) 보편적으로 바깥쪽을 향해 팽창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총괄우주의 외부 지역을 따라서, 20억_년 주기의 공간 호흡 작용에 일곱 연방우주 전체가 참여한다.

우주들이 팽창하고 축소할 때, 충만한 공간의 물질 덩어리들은, **낙원** 인력의 흡인력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움직인다. 창조로 인한 물질 에너지 덩어리를 움직일 때 행해지는 작용은 공간 작용이고, 동력_에너지 작용이 아니다.

너희가 분광기{分光器}로 얻은 천문학적 속도의 추정치는, 너희 연방우주 및 그 이웃 연방우주들에 속하는, 별이 가득한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제법 신뢰할만하더라도, 외부 공간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산이 전혀 신뢰할만하지 않다. 스펙트럼 광선은 다가오는 별로 말미암아 정상에서 보라색 쪽으로 옮겨지며; 마찬가지로 이 광선은 멀어져가는 별로 말미암아 빨간 색 쪽으로 옮겨진다. 많은 영향이 개재함으로써, 거리가 100만 광년 늘어날 때마다, 외부 우주들의 후퇴 속도가 초당 100마일 이상의 비율로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더 강력한 망원경이

process of stellar evolution, but their ability so to function must have been made possible by some modification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4.7 (133.9) Space is, from the human viewpoint, nothing — negative; it exists only as related to something positive and nonspatial. Space is, however, real. It contains and conditions motion. It even moves. Space motions may be roughly classified as follows:

12.4.8 (133.10) 1. Primary motion — space respiration, the motion of space itself.

12.4.9 (133.11) 2. Secondary motion — the alternate directional swings of the successive space levels.

12.4.10 (133.12) 3. Relative motions — relative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evaluated with Paradise as a base point. Primary and secondary motions are absolute, motion in relation to unmoving Paradise.

12.4.11 (133.13) 4. Compensatory or correlating movement designed to co-ordinate all other motions.

12.4.12 (134.1) The present relationship of your sun and its associated planets, while disclosing many relative and absolute motions in space, tends to convey the impression to astronomic observers that you are comparatively stationary in space, and that the surrounding starry clusters and streams are engaged in outward flight at ever-increasing velocities as your calculations proceed outward in space. But such is not the case. You fail to recognize the present outward and uniform expansion of the physical creations of all pervaded space. Your own local creation (Nebadon) participates in this movement of universal outward expansion. The entire seven superuniverses participate in the two-billion-year cycles of space respiration along with the outer regions of the master universe.

12.4.13 (134.2) When the universes expand and contract, the material masses in pervaded space alternately move against and with the pull of Paradise gravity. The work that is done in moving the material energy mass of creation is *space* work but not *power-energy* work.

12.4.14 (134.3) Although your spectroscopic estimations of astronomic velocities are fairly reliable when applied to the starry realms belonging to your superuniverse and its associate superuniverses, such reckonings with reference to the realms of outer space are wholly unreliable. Spectral lines are displaced from the normal towards the violet by an approaching star; likewise these lines are displaced towards the red by a receding star. Many influences interpose to make it appear that the recessional velocity of the external universes increases at the rate of more than one hundred miles a second for every million light-

완성된 후에, 멀리 있는 이 체계들이 초당 3만 마일 이상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우주의 이 부분으로부터 날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견상의 이 후퇴 속도는 실체가 아니며; 관찰하는 각도를 포함한 수많은 오류 요인 및 기타 여러 시_공간 일그러짐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그러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곱 연방우주 영토 다음 영역들에 있는 외부 공간의 방대한 우주들이, 광우주가 공전하는 방향과 반대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이 무수한 성운과 이것들을 따르는 항성 및 구체들은, 지금 중앙 창조물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는, **낙원**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일곱 연방우주와 마찬가지로, 성단들 중에서 둘째 외부 우주가 **낙원**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버사**의 천체 관찰자들은, 시계방향 본성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멀리 있는 공간의 셋째 외부 지대에서 공전 운동 증거물을 포착했다고 생각한다.

공간에서 연달아 우주 행렬들의 방향이 이렇게 교대로 바뀌는 것은, **우주 절대자**에게 속하는, 총괄우주 내부의 기법, 즉 세력들을 조정하고 공간의 긴장상태를 균일화시키는 우주 인력 기법과, 아마 무슨 상관이 있는 듯하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움직임도 인력을 보완하거나 균형을 잡는다.

5. 공간과 시간

공간처럼, 시간 역시 **낙원**이 증여한 것이지만,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간접적으로 그렇다. 시간은 움직임으로 인해, 그리고 정신이 연속성을 내재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용적 관점에서는 움직임이 시간에 필수적이지만, **낙원 하보나** 표준일이 임의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 외에는, 움직임에 근거하는 보편적 시간 단위는 없다. 전체 공간 호흡작용이 시간 근원으로서는 그 표준일의 국지적 가치를 없애버린다.

공간은 **낙원**으로부터 기원했음에도 무한하지 않으며;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무조건 절대자**가 공간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의 절대 한계를 모르지만, 시간의 절대 현상이 영원이라는 것은 안다.

시간과 공간은, 시_공간 창조계, 즉 일곱 연방 우주에서만 분리될 수 없다. 비시간 공간(곧 시간 없는 공간)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비시간의 장소는 **낙원 지역**뿐이다. 비공간 시간(곧 공간 없는 시간)은 **낙원** 수준에서 작용하는 정

years increase in distance. By this method of reckoning, subsequent to the perfection of more powerful telescopes, it will appear that these far-distant systems are in flight from this part of the universe at the unbelievable rate of more than thirty thousand miles a second. But this apparent speed of recession is not real; it results from numerous factors of error embracing angles of observation and other time-space distortions.

12:4.15 (134.4) But the greatest of all such distortions arises because the vast universes of outer space, in the realms next to the domai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em to be revolving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of the grand universe. That is, these myriads of nebulae and their accompanying suns and spheres are at the present time revolving clockwise about the central creation. The seven superuniverses revolve about Paradise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It appears that the second outer universe of galaxies, like the seven superuniverses, revolves counterclockwise about Paradise. And the astronomic observers of Uversa think they detect evidence of revolutionary movements in a third outer belt of far-distant space which are beginning to exhibit directional tendencies of a clockwise nature.

12:4.16 (134.5) It is probable that these alternate directions of successive space processions of the universe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intramaster universe gravity technique of the Universal Absolute, which consists of a co-ordination of forces and an equalization of space tensions. Motion as well as space is a complement or equilibrant of gravity.

5. SPACE AND TIME

12:5.1 (134.6) Like space, time is a bestowal of Paradise, but not in the same sense, only indirectly. Time comes by virtue of motion and because mind is inherently aware of sequentiality. From a practical viewpoint, motion is essential to time, but there is no universal time unit based on motion except in so far as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is arbitrarily so recognized. The totality of space respiration destroys its local value as a time source.

12:5.2 (135.1) Space is not infinite, even though it takes origin from Paradise; not absolute, for it is pervaded by the Unqualified Absolute. We do not know the absolute limits of space, but we do know that the absolute of time is eternity.

12:5.3 (135.2) Time and space are inseparable only in the time-space creations, the seven superuniverses. Nontemporal space (space without time) theoretically exists, but the only truly nontemporal place is Paradise area. Nonspatial time (time without space) exists in mind of the

신 속에 존재한다.

낙원과 맞닿아 있는 충만한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구분시키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중간_공간 지대들은 시간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과도기 지대인데, 그래서 **낙원** 순례자들은 이런 이동 중에 무의식 상태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 이동은 **낙원** 시민이 됨으로 완결된다. 시간을_의식하는 방문자들은 그렇게 잠들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세계의 피조물이다.

시간에 대한 관계는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 의식은 존재한다. 움직임이 없는 중이라도 연속성이 시간을 의식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은 공간에_속박됨보다 시간에_속박됨이 덜한데, 정신의 내재적 본성 때문이다. 육신 속에서 이 세상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사람의 정신이 엄밀하게 공간에_속박된 상태에 있음에도,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은 비교적 시간과 무관하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유전적으로 볼 때, 정신의 특성이 아니다.

세 가지 시간 인지 수준이 있다:

1. 정신이_감지하는 시간 --연속됨과 움직임을 의식함, 그리고 지속기간의 감각.

2. 영이_감지하는 시간 --**하나님**을_향한 움직임을 통찰함, 그리고 점증하는 신성{神性} 수준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자각함.

3. **실체**를 보는 통찰력으로부터, 인격은 독특한 시간 감각, 그리고 현존한다는 의식과 지속기간을 자각하는 의식을 창조한다.

비영적{非靈的} 동물은 오직 과거만 알면서 현재에 산다. 영이_내주된 사람은 선견 능력(곧 통찰력)을 가지며,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다. 오직 앞을_내다보는 진취적인 태도만이 개인적으로 실체한다. 고정된 윤리와 전통적인 도덕성은, 동물보다 약간 나은 정도일 뿐이다. 금욕주의도 높은 규범의 자아_실현이 전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일 때, 우주 실체와 함께 살아있을 때, 참으로 인간답게 된다.

인간 인격은 단순히 시간_및_공간 사건의 부수물이 아니며; 인간 인격은 그런 사건의 시공우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 우주의 전면통제

우주는 경직돼 있지 않다. 안정성은 관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잡힌 에너지, 협동 정신, 조화된 모론시아, 영 전면통제, 및 인격 통합의 산물이다. 안정성은 전적으로, 언제나 신성{神性}의 정도에 비례한다.

Paradise level of function.

12.5.4 (135.3) The relatively motionless midspace zones impinging on Paradise and separating pervaded from unpervaded space are the transition zones from time to eternity, hence the necessity of Paradise pilgrims becoming unconscious during this transit when it is to culminate in Paradise citizenship. Time-conscious visitors can go to Paradise without thus sleeping, but they remain creatures of time.

12.5.5 (135.4) Relationships to time do not exist without motion in space, but consciousness of time does. Sequentiality can consciosize time even in the absence of motion. Man's mind is less time-bound than space-bound because of the inherent nature of mind. Even during the days of the earth life in the flesh, though man's mind is rigidly space-bound, the creative human imagination is comparatively time free. But time itself is not genetically a quality of mind.

12.5.6 (135.5) There are three different levels of time cognizance:

12.5.7 (135.6) 1. Mind-perceived time — consciousness of sequence, motion, and a sense of duration.

12.5.8 (135.7) 2. Spirit-perceived time — insight into motion Godward and the awareness of the motion of ascent to levels of increasing divinity.

12.5.9 (135.8) 3. Personality creates a unique time sense out of insight into Reality plus a consciousness of presence and an awareness of duration.

12.5.10 (135.9) Unspiritual animals know only the past and live in the present. Spirit-indwelt man has powers of prevision (insight); he may visualize the future. Only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attitudes are personally real. Static ethics and traditional morality are just slightly superanimal. Nor is stoicism a high order of self-realization. Ethics and morals become truly human when they are dynamic and progressive, alive with universe reality.

12.5.11 (135.10) The human personality is not merely a concomitant of time-and-space events; the human personality can also act as the cosmic cause of such events.

6. UNIVERSAL OVERCONTROL

12.6.1 (135.11) The universe is nonstatic. Stability is not the result of inertia but rather the product of balanced energies, co-operative minds, co-ordinated morontias, spirit overcontrol, and personality unification. Stability is wholly and always proportional to divinity.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총괄우주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면서 **낙원 섬**을 통해 우선권과 지상권{至上權}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시공우주를 영적으로 경영함에 절대적이다. 정신 분야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공동 행위자** 안에서 대등하게 활동하신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시공우주 정신을 절대로 지배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물리적_인력 및 영적_인력 보충물{補充物}을 활용함으로써, 혼합된 물리적 에너지 및 영 에너지의 평형을 유지하고 조정하도록 돕는다. 물질계와 영계{靈界} 사이에 접촉이 이뤄질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런 정신 현상은 **무한한 영**의 활동이다. 정신이 단독으로, 물질 수준의 물리적 힘과 에너지를 영적 능력 및 영 수준의 존재들과 상호연합시킬 수 있다.

우주의 현상에 대하여 너희가 심사숙고할 때마다,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에너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격이 그것들을 통합하는 데 부수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위해서, 체험적 **신격**과 **절대자**들의 행위 및 반응에서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위해서, 적당한 허용 오차{誤差}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주는 양적 의미, 즉 인력을 측정하는 의미에서만 고도로 예측될 수 있으며; 심지어 시초의 물리적 힘도 직선 인력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 우주 실체들이 지닌 높은 정신 의미와 참된 영 가치가 아니다. 물리적, 정신적, 또는 영적 힘의 새로운 연합을 고려할 때, 우주는 질적으로 그렇게 고도로 예측될 수 없더라도, 비판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에너지나 세력의 그런 조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질, 정신, 및 영을 피조 인격이 통합할 때,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 존재가 내린 결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

원초적 힘, 미성숙 영, 그 외에 인격없는 근본 원리의 모든 국면은,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어떤 미지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는 듯하며, 경계가 정해지고 고립된 상황의 현상으로 마주쳤을 때, 종종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 범위가 넓고 신축성 있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떠오르는 이 우주 실상이 드러내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유로운 반응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알려지지 않은, 헤아릴 수 없이 예측 불가능 이런 것들은 --힘의 원시적 단위의 행태든지, 불확실한 정신 수준의 반응이든지, 또는 외부 공간 영토들에서 아직 우주가 되기 전의 광대한 현상과 관련이 있든지-- 모든 우주 **창조주**들의 기능이 아니라, 선행하는 **궁극자**의 활동과 **절대자**들의 현존_실행을 아마 드러낼 것이다.

12:6.2 (135.12) In the physical control of the master universe the Universal Father exercises priority and primacy through the Isle of Paradise; God is absolute in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cosmos in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Concerning the domains of mind, the Father and the Son function co-ordinately in the Conjoint Actor.

12:6.3 (136.1)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sists in the maintenance of the equilibrium and co-ordination of the combined physical and spiritual energies and organizations by the absoluteness of his grasp of the cosmic mind and by the exercise of his inherent and universal physical- and spiritual-gravity complements. Whenever and wherever there occurs a liais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such a mind phenomenon is an act of the Infinite Spirit. Mind alone can interassociate the physical forces and energies of the material level with the spiritual powers and beings of the spirit level.

12:6.4 (135.14) In all your contemplation of universal phenomena, make certain that you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relation of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energies, and that due allowance is made for the unexpected phenomena attendant upon their unification by personality and for the unpredictable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experiential Deity and the Absolutes.

12:6.5 (135.15) The universe is highly predictable only in the quantitative or gravity-measurement sense; even the primal physical forces are not responsive to linear gravity, nor are the higher mind meanings and true spirit values of ultimate universe realities. Qualitatively, the universe is not highly predictable as regards new associations of forces, either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although many such combinations of energies or forces become partially predictable when subjected to critical observation. When matter, mind, and spirit are unified by creature personality, we are unable fully to predict the decisions of such a freewill being.

12:6.6 (135.16) All phases of primordial force, nascent spirit, and other nonpersonal ultimates appear to react in accordance with certain relatively stable but unknown laws and are characterized by a latitude of performance and an elasticity of response which are often disconcerting when encountered in the phenomena of a circumscribed and isolated situation. What is the explanation of this unpredictable freedom of reaction disclosed by these emerging universe actualities? These unknown, unfathomable unpredictables — whether pertaining to the behavior of a primordial unit of force, the reaction of an unidentified level of mind, or the phenomenon of a vast preuniverse in the making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 probably disclose the activities of the Ultimate and the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그런 놀라운 융통성과 그런 심오한 협조가 **절대자**들의 현존 및 행적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외견상 확일적인 원인에도 아랑곳없이, 그런 다양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상황에 알맞은 원인뿐 아니라, 전체 총괄우주 전반에 걸친 다른 모든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도, **절대자**들의 반응을 드러낸다고 추측한다.

개인마다 자신의 운명 후견인을 소유하며; 행성, 체계, 성좌, 우주, 및 연방우주들은 각각 자기 영역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각각의 통치자를 소유한다. **하보나**, 그리고 광우주까지도, 그런 높은 책임이 위탁된 분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나 **낙원**으로부터 넷째이자 가장 외부에 있는 공간 층에 이르기까지, 총괄우주 전체를 양육하고 그 기본적인 필요를 보살필 자가 누구인가? 실존적으로 그런 책임은 아마 **낙원 삼위일체**에게 있겠지만, 체험적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 이후 우주들의 상황은 다 음에 의존한다:

1. 잠재력은 **절대자**들에게.
2. 방향은 **궁극자**에게.
3. 진화의 조정은 **지존자**에게.
4. 특정한 통치자들이 출현하기까지, 경영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에게.

무조건 절대자가 전체 공간에 충만해 있다. **신격** 및 **우주 절대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처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격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가 작용하는 곳은 어디든지 **우주 절대자**가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격 절대자**가 보편적으로 현존할 수 있지만 공간에 현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궁극자**는 넷째 공간 층의 바깥 경계선까지 공간에 현존하고 있거나, 또는 언젠가 현존할 것이다. **궁극자**가 총괄우주 가장자리를 넘어서 공간에 항상 현존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혹을 품지만, 이 한계 내에서는 세 **절대자**의 잠재력에 대한 창조적 조직을 **궁극자**가 점진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7. 부분과 전체

모든 시간과 공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본성에 상관없이, 모든 실체에 작용하는 냉혹한 비인격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섭리의 작용에 상당한다. 자비는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의 특징이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 공평함이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 뜻이 부분-- 곧 어떤 한 인격체의 마음-- 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이 전체, 즉 온갖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which antedate the function of all universe Creators.

12:6.7 (135.17) We do not really know, but we surmise that such amazing versatility and such profound co-ordination signify the presence and performance of the Absolutes, and that such diversity of response in the face of apparently uniform causation discloses the reaction of the Absolutes, not only to the immediate and situational causation, but also to all other related causations throughout the entire master universe.

12:6.8 (135.18) Individuals have their guardians of destiny; planets,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each have their respective rulers who labor for the good of their domains. Havona and even the grand universe are watched over by those intrusted with such high responsibilities. But who fosters and cares for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master universe as a whole, from Paradise to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Existentially such overcare is probably attributable to the Paradise Trinity, but from an experiential viewpoint the appearance of the post-Havona universes is dependent on:

- 12:6.9 (135.19) 1. The Absolutes in potential.
- 12:6.10 (135.20) 2. The Ultimate in direction.
- 12:6.11 (137.1) 3. The Supreme in evolutionary co-ordination.
- 12:6.12 (137.2) 4.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in administration prior to the appearance of specific rulers.

12:6.13 (137.3) The Unqualified Absolute pervades all space. We are not altogether clear as to the exact status of the Deity and Universal Absolutes, but we know the latter functions wherever the Deity and Unqualified Absolutes function. The Deity Absolute may be universally present but hardly space present. The Ultimate is, or sometime will be, space present to the outer margins of the fourth space level. We doubt that the Ultimate will ever have a space presence beyond the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within this limit the Ultimate is progressively integrating the creative organization of the potentials of the three Absolutes.

7. THE PART AND THE WHOLE

12:7.1 (137.4) There is operative throughout all time and space and with regard to all reality of whatever nature an inexorable and impersonal law which is equivalent to the function of a cosmic providence. Mercy characterizes God's attitude of love for the individual; impartiality motivates God's attitude toward the total. The will of God does not necessarily prevail in the part — the heart of any

우주를 실제로 다스린다.

어떤 존재와 무슨 관계를 갖든지, **하나님**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독단적이지는 않음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활동은, 너희의 제한된 통찰력과 유한한 관점에서 보면, 종종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습성, 즉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방법일 뿐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는데,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특별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며; 가장 좋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고 완전한 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무한한 지혜가 항상 명령한다. 너희는 또한, 자연이 **신격**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 속에는 다른 영향도 있다.

어떤 종류의 퇴보든지 견디는 것, 또는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행위든지 열등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은, 신(神)의 본성에 모순된다. 아무튼, 만약, 어떤 신성한 상황,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 최상의 지혜로운 방침이 다른 진행을 필요로 한다고 가리키는 어떤 경우든지--곧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반응 방법, 즉 더 나은 방법을 지시한다면, 온전히-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적당한 방법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낮은 법칙의 파기가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임의로 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기에 습관적으로_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다. **무한자**의 법칙 가운데는 모순이 없으며; 그 법칙은 모두 전혀 오류 없는 본성의 완성이며; 모두 결점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명백한 행위다. 법칙은, 무한하고 완전한 신(神)의 정신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이 명백한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발적이다. **하나님** 안에는, “변덕스러움이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께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종속된 지성체 또는 진화 피조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똑같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므로, 모든 정상 상황에서, **하나님**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신다고, 너희는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사물과 존재를 위한 안정성을 보증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변치 않으신다.

그리고 이런 진행이 확고하고 행위가 한결같은 것은, 모두 개인적이고 의식적(意識的)이며 매우 자발적인데,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성과 무한성에 속수무책으로 노예가 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_행동하는 자동적인 힘이 아니며; 법칙에_묶인 노예근성의 동력도 아니다. **하나님**은 수학 방정식이 아니고 하

one personality — but his will does actually rule the whole, the universe of universes.

12.7.2 (137.5) In all his dealings with all his beings it is true that the laws of God are not inherently arbitrary. To you, with your limited vision and finite viewpoint, the acts of God must often appear to be dictatorial and arbitrary. The laws of God are merely the habits of God, his way of repeatedly doing things; and he ever does all things well. You observe that God does the same thing in the same way, repeatedly, simply because that is the best way to do that particular thing in a given circumstance; and the best way is the right way, and therefore does infinite wisdom always order it done in that precise and perfect manner. You should also remember that nature is not the exclusive act of Deity; other influences are present in those phenomena which man calls nature.

12.7.3 (137.6) It is repugnant to the divine nature to suffer any sort of deterioration or ever to permit the execution of any purely personal act in an inferior way. It should be made clear, however, that, if, in the divinity of any situation, in the extremity of any circumstance, in any case where the course of supreme wisdom might indicate the demand for different conduct — if the demands of perfection might for any reason dictate another method of reaction, a better one, then and there would the all-wise God function in that better and more suitable way. That would be the expression of a higher law, not the reversal of a lower law.

12.7.4 (137.7) God is not a habit-bound slave to the chronicity of the repetition of his own voluntary acts. There is no conflict among the laws of the Infinite; they are all perfections of the infallible nature; they are all the unquestioned acts expressive of faultless decisions. Law is the unchanging reaction of an infinite, perfect, and divine mind. The acts of God are all volitional notwithstanding this apparent sameness. In God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But all this which can be truly said of the Universal Father cannot be said with equal certainty of all his subordinate intelligences or of his evolutionary creatures.

12.7.5 (137.8) Because God is changeless, therefore can you depend, in all ordinary circumstances, on his doing the same thing in the same identical and ordinary way. God is the assurance of stability for all created things and beings. He is God; therefore he changes not.

12.7.6 (138.1) And all this steadfastness of conduct and uniformity of action is personal, conscious, and highly volitional, for the great God is not a helpless slave to his own perfection and infinity. God is not a self-acting automatic force; he is not a slavish law-bound power. God is neither a mathematical equation nor a chemical formula. He

학 공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근본 인격체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신데, 인격으로 넘칠 만큼 충전된 존재이고, 우주에서 모든 피조 인격체의 원천이다.

하나님을 찾는 물질 필사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뜻이 한결같이 우세하지는 않지만, 시간의 틀이 순간을 넘어서, 첫 번째 생애 전체를 포함할 만큼 확대되면, 영에게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서 열리는 영 열매에서 **하나님** 뜻을 점점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인간 생애가 모론시아 체험을 포함할 정도로 더 확장되면,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비로소 맛보는, 시간세계의 피조물들이 영성화 하는 행위에서, 신의 뜻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은, 인격체 수준에서 부분인 동시에 전체라는 모순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하늘의 가정(家庭)에서 개별 자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 전체 관계, 즉 만인의 형제관계가 생기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각 인격체를, **만유의 아버지**의 독특한 한 자녀, 무한성에서 복제되지 않는 자녀, 전체 영원성에서 갈아치울 수 없는, 의지를 지닌 한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개별화시킨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각자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 사랑은 천상(天上)의 가족 각 구성원을 비추고, 만유의 **아버지**의 우애(友愛) 회로 바깥에 있는 비인격 수준과는 반대로, 각각의 인격있는 존재의 독특한 본성을 예리하게 그림자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를 지닌 각 피조물의 초월 가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낙원** 신분의 가장 높은 창조자 인격체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인간 종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미개한 부족원(部族員) 가운데 의지 존엄성을 지닌 가장 낮은 인격체에 이르기까지, 자녀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만유의 아버지**가 부여해 오신 높은 가치를 반드시 드러낸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이, 모든 개인의 신성한 가족, **낙원 아버지**의 자녀, 자유의지를 지닌 자녀의 보편적 형제관계가 생기게 한다. 그리고 이 형제관계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체의 관계다. 형제관계는, 보편적일 때, **각각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형제관계는, 전체가 소속된 하나의 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의 특성을 드러낸다.

형제관계는,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인격체 사이의 연관성이 사실임을 성립시킨다. 어떤 인격자든지, 다른 인격자들에 대한 관계의 결과로 올 수 있는 유익 또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부분은 전

is a freewill and primal personality. He is the Universal Father, a being surcharged with personality and the universal fount of all creature personality.

12.7.7 (138.2) The will of God does not uniformly prevail in the heart of the God-seeking material mortal, but if the time frame is enlarged beyond the moment to embrace the whole of the first life, then does God's will become increasingly discernible in the spirit fruits which are borne in the lives of the spirit-led children of God. And then, if human life is further enlarged to include the morontia experience, the divine will is observed to shine brighter and brighter in the spiritualizing acts of those creatures of time who have begun to taste the divine delights of experiencing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ality of man with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2.7.8 (138.3)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present the paradox of the part and the whole on the level of personality. God loves *each* individual as an individual child in the heavenly family. Yet God thus loves *every* individual;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the universality of his love brings into being a relationship of the whole, the universal brotherhood.

12.7.9 (138.4) The love of the Father absolutely individualizes each personality as a unique child of the Universal Father, a child without duplicate in infinity, a will creature irreplaceable in all eternity. The Father's love glorifies each child of God, illuminating each member of the celestial family, sharply silhouetting the unique nature of each personal being against the impersonal levels that lie outside the fraternal circuit of the Father of all. The love of God strikingly portrays the transcendent value of each will creature, unmistakably reveals the high value which the Universal Father has placed upon each and every one of his children from the highest creator personality of Paradise status to the lowest personality of will dignity among the savage tribes of men in the dawn of the human species on some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12.7.10 (138.5) This very love of God for the individual brings into being the divine family of all individuals,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the freewill children of the Paradise Father. And this brotherhood, being universal, is a relationship of the whole. Brotherhood, when universal, discloses not the *each* relationship, but the *all* relationship. Brotherhood is a reality of the total and therefore discloses qualities of the whole in contradistinction to qualities of the part.

12.7.11 (138.6) Brotherhood constitutes a fact of relationship between every personality in universal existence. No person can escape the benefits or the penalties that may come as a result of

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겪는다. 각 사람의 선한 노력은 전체 인간에게 이익을 주며; 각 사람의 실책 또는 악은 모든 사람의 시련을 증대시킨다. 부분이 움직이는 만큼 전체도 움직인다. 전체가 나아가는 만큼 부분도 나아간다. 부분이 전체의 관성 때문에 뒤쳐지는지, 아니면 시공우주 형제관계의 추진력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지를, 부분과 전체의 상대 속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상당히 개인적이면서 자아를 의식하고 거주 본부를 갖는 존재인 동시에, 그런 방대한 우주에 몸소 현존하면서 그런 거의 무한한 숫자의 존재와 직접 접촉하시는 것은 신비롭다. 그런 현상이 인간의 납득을 넘어서는 신비라고 해서, 너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성의 방대함, 영원성의 광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성품의 위대함과 영광이, 너희를 위압하거나 동요시키거나 낙담시키게 하지 말라; **아버지**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실제로 살며, 틀림없이 우리의 존재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낙원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창조자들과 피조자녀를 통해서 활동하심에도, 또한 너희와 가장 긴밀한 내적 접촉을 누리시는데, 너무나 고귀하고 고도로 개인적이어서, 심지어 내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다--이 접촉은 **아버지**의 단편이 인간 혼과, 그리고 실제로 그 단편이 내주하는 필사 정신과 나누는 신비스런 교류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신성한 동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필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접촉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낙원**에 거주하지만, 그의 신성한 현존은 사람의 정신 속에도 거주한다.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더라도, **아들**이 한때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더라도, 스라빔이 너희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안내하더라도, **제2 중심** 및 **제3 중심**의 이 신성한 존재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너희 안에 있기 위해서, 너희의 실제적이고 신성한 자아, 심지어 너희의 영원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처럼, 충분히 너희를 이해하거나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를 바랄 수 있을까?

8. 물질, 정신, 및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낙원**은 영이 아니다. 물질 우주는 언제나 모든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 경기장이며; 영 존재와 영 상승자들은 물질 실체인 물리적 구체에 살면서 일한다.

시공우주 힘은 시공우주 인력(引力)의 분야요, 이 힘을 증여하는 것은 **낙원 섬**의 기능이다. 모

relationship to other persons. The part profits or suffers in measure with the whole. The good effort of each man benefits all men; the error or evil of each man augments the tribulation of all men. As moves the part, so moves the whole. As the progress of the whole, so the progress of the part. The relative velocities of part and whole determine whether the part is retarded by the inertia of the whole or is carried forward by the momentum of the cosmic brotherhood.

12:7.12 (139.1) It is a mystery that God is a highly personal self-conscious being with residential headquarters, and at the same time personally present in such a vast universe and personally in contact with such a well-nigh infinite number of beings. That such a phenomenon is a mystery beyond human comprehension should not in the least lessen your faith. Do not allow the magnitude of the infinity, the immensity of the eternity, and the grandeur and glory of the matchless character of God to overawe, stagger, or discourage you; for the Father is not very far from any one of you; he dwells within you, and in him do we all literally move, actually live, and veritably have our being.

12:7.13 (139.2) Even though the Paradise Father functions through his divine creators and his creature children, he also enjoys the most intimate inner contact with you, so sublime, so highly personal, that it is even beyond my comprehension — that mysterious communion of the Father fragment with the human soul and with the mortal mind of its actual indwelling. Knowing what you do of these gifts of God, you therefore know that the Father is in intimate touch, not only with his divine associates, but also with his evolutionary mortal children of time. The Father indeed abides on Paradise, but his divine presence also dwells in the minds of men.

12:7.14 (139.3) Even though the spirit of a Son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even though a Son once dwelt with you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even though the seraphim personally guard and guide you, how can any of these divine beings of the Second and Third Centers ever hope to come as near to you or to understand you as fully as the Father, who has given a part of himself to be in you, to be your real and divine, even your eternal, self?

8. MATTER, MIND, AND SPIRIT

12:8.1 (139.4) “God is spirit,” but Paradise is not. The material universe is always the arena wherein take place all spiritual activities; spirit beings and spirit ascenders live and work on physical spheres of material reality.

12:8.2 (139.5) The bestowal of cosmic force, the domain of cosmic gravity, is the function of the Isle

든 원본 힘_에너지가 **낙원**에서 나오고, 수많은 우주들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초월인력 현존 형태로 총괄우주 전반에 두루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그 초월인력 현존은 충만된 공간의 힘_전하{電荷}를 구성한다.

바깥에 있는 우주들에서 힘이 어떤 변형을 겪든지, 그것은 **낙원**에서 나왔기에, 끝이 없는, 항상_현존하는, 틀림없는 영원 **섬**의 끌어당김에 종속되어 여행하는데,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경로 주변을 충실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영구히 돌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우주의 법칙을 참되고 확고 부동하게 준수하는 하나의 실체다. 피조물이 결단하는 범주에서만, 신성한 경로와 원래 계획으로부터 이탈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동력과 에너지는 중앙 **낙원 섬**의 안정성, 불변성, 및 영원성의 보편적 증거다.

영을 증여하고 인격체들을 영성화{靈性化}하는 것은 영적 인력의 분야인데,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모든 영적 실체를 반드시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아들**의 이 영 인력은, **낙원 섬**의 전능한 물질 지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_정신을 가진 사람은, 동등하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적 본성의 작동보다, 물리적 본성의 물질 형태화에 본래 더 친밀한데, 영적 본성은 혼의 영적 통찰력으로만 분별된다.

우주에 있는 어느 인격체든지, 그의 정신은 더 영적으로--곧 **하나님**처럼--될수록 물질 인력에 덜 반응하게 된다. 물리적_인력 반응으로 측정하는 실체는, 영 내용의 질{質}에 따라서 결정하는 실체와 정반대다. 물리적_인력 작용은, 영{靈}이 아닌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며; 영적_인력 행위는 살아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채는 질적 척도다.

낙원이 물리적 창조에 응하는 만큼, **영원한 아들**이 영적 우주에 응하는 만큼, **공동 행위자**는 정신의 영역에--곧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 및 인격체들의 지성 우주에--응한다.

공동 행위자는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양쪽에 반응하며, 따라서 모든 지성 존재, 즉 창조의 물질 국면과 영적 국면, 양쪽의 합동을 나타낼 존재들에게 보편적 사역자가 된다. 지성을 부여하는 것, 즉 정신 현상에서 물질계와 영계{靈界}를 돌보는 일은 **공동 행위자**의 독점 분야인데, 그래서 **공동 행위자**는, 영적 정신의 동역자, 모론시아 정신의 본질, 그리고 시간세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의 물질 정신의 내용이다.

of Paradise. All original force-energy proceeds from Paradise, and the matter for the making of untold universes now circulates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in the form of a supergravity presence which constitutes the force-charge of pervaded space.

12:8.3 (139.6) Whatever the transformations of force in the outlying universes, having gone out from Paradise, it journeys on subject to the never-ending, ever-present, unfailing pull of the eternal Isle, obediently and inherently swinging on forever around the eternal space paths of the universes. Physical energy is the one reality which is true and steadfast in its obedience to universal law. Only in the realms of creature volition has there been deviation from the divine paths and the original plans. Power and energy are the universal evidences of the stability, constancy, and eternity of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12:8.4 (139.7) The bestowal of spirit and the spiritualization of personalities, the domain of spiritual gravity, is the realm of the Eternal Son. And this spirit gravity of the Son, ever drawing all spiritual realities to himself, is just as real and absolute as is the all-powerful material grasp of the Isle of Paradise. But material-minded man is naturally mo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a physical nature than with the equally real and mighty operations of a spiritual nature which are discerned only by the spiritual insight of the soul.

12:8.5 (140.1) As the mind of any personality in the universe becomes more spiritual — Godlike — it becomes less responsive to material gravity. Reality, measured by physical-gravity response, is the antithesis of reality as determined by quality of spirit content. Physical-gravity action is a quantitative determiner of nonspirit energy; spiritual-gravity action is the qualitative measure of the living energy of divinity.

12:8.6 (140.2) What Paradise is to the physical creation, and what the Eternal Son is to the spiritual universe, the Conjoint Actor is to the realms of mind — the intelligent universe of material, morontial, and spiritual beings and personalities.

12:8.7 (140.3) The Conjoint Actor reacts to both material and spiritual realities and therefore inherently becomes the universal minister to all intelligent beings, beings who may represent a union of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phases of creation. The endowment of intelligence, the ministry to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n the phenomenon of mind, is the exclusive domain of the Conjoint Actor, who thus becomes the partner of the spiritual mind, the essence of the morontia mind, and the substance of the material mind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ime.

정신은, 피조물 인격체가 영 실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결국, 심지어 인간 정신까지도 통합할 가능성, 즉 사물과 관념 그리고 가치를 조화시키는 역량은 초물질적이다.

상대적인 시공우주 실체의 일곱 수준을 납득하는 것이 필사 정신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더라도, 인간 지능은 유한 실체의 세 기능발휘 수준의 의미는 많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 **물질**. 움직임이 변경시키고 정신이 조절하는 경우 이외에, 직선 인력에 종속되는 조직화 된 에너지.

2. **정신**. 전적으로 물질 인력에 종속되지는 않는, 그리고 영이 변경시킬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조직화 된 의식.

3. **영**. 인격있는 가장 높은 실체. 참된 영은 물리적 인력에 종속되지 않지만, 결국 인격 존엄성에 속하는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에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이 된다.

모든 인격체의 실존 목표는 영이고; 물질 형태화는 상대적이며, 시공우주 정신이 우주의 이 양극단 사이에 있다. 정신 증여와 영 사역은 **신격**의 동역 인격자들, 즉 **무한한 영과 영원한 아들이** 하는 일이다. 전체 **신격** 실체는 정신이 아니라, 영_정신이다--곧 인격이 통합한 정신_영이다. 그럼에도 영과 사물 양쪽의 절대성이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 안에서 만난다.

낙원에서는 세 에너지, 즉 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가 대등하다.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는, 인격의 경우에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지휘하려고 애쓰는 것을 제외하고, 에너지_물질이 지배한다. 모든 피조물의 인격 체험에서 영이 근본 실체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인격 관계에서, 영이 정신과 물질 둘 다를 초월하며, 이 두 가지는 점진적 달성 과정에 체험적 변수다.

시공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물질은 신을 깨닫게 하는 영 발광체 앞에 정신이 던진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과_에너지가 실체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신, 물질, 및 영은 똑같이 실재하지만, 신성(神性)을 달성함에서는 인격체에게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성을 의식하는 것은 점진적인 영적 체험이다.

영성화 된 인격(곧 우주에 계신 **아버지**, 즉 개별 피조물 안에 있는 잠재적 영 인격체 단편)의 빛이 밝을수록, 끼어든 정신의 그림자가 물질 대상물 위에 더 짙게 드리워진다. 시간세계에서 사람

12:8.8 (140.4) Mind is the technique whereby spirit realities become experiential to creature personalities. And in the last analysis the unifying possibilities of even human mind, the ability to co-ordinate things, ideas, and values, is supermaterial.

12:8.9 (140.5) Though it is hardly possible for the mortal mind to comprehend the seven levels of relative cosmic reality, the human intellect should be able to grasp much of the meaning of three functioning levels of finite reality:

12:8.10 (140.6) 1. *Matter*. Organized energy which is subject to linear gravity except as it is modified by motion and conditioned by mind.

12:8.11 (140.7) 2. *Mind*. Organized consciousness which is not wholly subject to material gravity, and which becomes truly liberated when modified by spirit.

12:8.12 (140.8) 3. *Spirit*. The highest personal reality. True spirit is not subject to physical gravity but eventually becomes the motivating influence of all evolving energy systems of personality dignity.

12:8.13 (140.9) The goal of existence of all personalities is spirit; material manifestations are relative, and the cosmic mind intervenes between these universal opposites. The bestowal of mind and the ministration of spirit are the work of the associate persons of Deity, the Infinite Spirit and the Eternal Son. Total Deity reality is not mind but spirit-mind — mind-spirit unified by personality. Nevertheless the absolutes of both the spirit and the thing converge in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12:8.14 (140.10) On Paradise the three energies,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are co-ordinate. In the evolutionary cosmos energy-matter is dominant except in personality, where spirit,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is striving for the mastery. Spirit is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personality experience of all creatures because God is spirit. Spirit is unchanging, and therefore, in all personality relations, it transcends both mind and matter, which are experiential variables of progressive attainment.

12:8.15 (140.11) In cosmic evolution matter becomes a philosophic shadow cast by mind in the presence of spirit luminosity of divine enlightenment, but this does not invalidate the reality of matter-energy. Mind, matter, and spirit are equally real, but they are not of equal value to personality in the attainment of divinity. Consciousness of divinity is a progressive spiritual experience.

12:8.16 (141.1) The brighter the shining of the spiritualized personality (the Father in the universe, the fragment of potential spirit personality in the individual creature), the greater the shadow

의 육신은 정신 또는 영과 마찬가지로 실재하지만, 죽음에 이르면 정신(곧 정체성)과 영은 둘 다 살아남는 반면, 육신은 살아남지 못한다. 시공우주 실체는 인격의 체험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은 더 실체적인 영 본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너희 그리스인의 비유적 표현은 철학적으로 의미심장하다.

cast by the intervening mind upon its material investment. In time, man's body is just as real as mind or spirit, but in death, both mind (identity) and spirit survive while the body does not. A cosmic reality can be nonexistent in personality experience. And so your Greek figure of speech — the material as the shadow of the more real spirit substance — does have a philosophic significance.

9. 인격있는 실체

영은 우주들에서 인격있는 기본 실체이며, 인격은 영적 실체를 겪는 모든 진보하는 체험에 기본적이다. 우주가 진보하는 연속된 어떤 수준에서든지, 인격을 체험하는 국면마다, 매혹적인 인격있는 실체의 발견에 단서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참된 운명은, 새로운 목표와 영 목표를 창작하고,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 가치를 갖는 그런 숭고한 목표로 인도하는 시공우주의 매혹에 반응하는 데 있다.

사랑은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를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다. 너희가 단 한 번 접촉한 결과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알 수는 없다. 음악이 수학적인 어떤 형태의 리듬이더라도, 너희는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만 음악의 진가를 알 수 없다. 전화 가입자에게 배정된 번호는, 그 가입자가 인격체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하지 못하고, 그의 성품에 관해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물질 과학인 수학(數學)은 우주의 물질 측면에 대한 지성적 토론에 필수이지만, 그런 지식이, 높은 진리의 실현 또는 영적 실체들에 대한 인격적 평가의 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생명의 범주뿐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 세계에서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의 합은, 그런 합동의 예측 가능한 덧셈 결과 이상(以上)의 어떤 것이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인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수학 전체, 철학의 전체 분야, 최고의 물리학 또는 화학이라도, 두 개의 수소 기체 원자와 한 개의 산소 기체 원자가 합쳐져서, 어떤 새롭고도 질적으로 초월적인 덧셈의 본질이--곧 액체의 물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알 수 없었다. 이 한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충명한 지식이, 유물론적 철학과 기계론적 우주론의 발달을 막았어야 했다.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없다. 예를 들면--물은 불을 끄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물이 불을 끌 것이라는 사실은 일상에서 체험한 결과지만, 물에 대한 어떤 분석도 그런 특성을 밝히기에 이용될 수 없었다. 분석은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돼

9. PERSONAL REALITIES

12:9.1 (141.2) Spirit is the basic personal reality in the universes, and personality is basic to all progressing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y. Every phase of personality experience on every successive level of universe progression swarms with clues to the discovery of alluring personal realities. Man's true destiny consists in the creation of new and spirit goals and then in responding to the cosmic allurements of such supernal goals of nonmaterial value.

12:9.2 (141.3) Love is the secret of beneficial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ies. You cannot really know a person as the result of a single contact. You cannot appreciatingly know music through mathematical deduction, even though music is a form of mathematical rhythm. The number assigned to a telephone subscriber does not in any manner identify the personality of that subscriber or signify anything concerning his character.

12:9.3 (141.4) Mathematics, material science, is indispensable to the intelligent discussion of the material aspects of the universe, but such knowledge is not necessarily a part of the higher realization of truth or of the personal appreciation of spiritual realities. Not only in the realms of life but even in the world of physical energy, the sum of two or more things is very often something *more* than, or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predictable additive consequences of such unions. The entire science of mathematics, the whole domain of philosophy, the highest physics or chemistry, could not predict or know that the union of two gaseous hydrogen atoms with one gaseous oxygen atom would result in a new and qualitatively superadditive substance — liquid water. The understanding knowledge of this one physiochemical phenomenon should have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materialistic philosophy and mechanistic cosmology.

12:9.4 (141.5) Technical analysis does not reveal what a person or a thing can do. For example: Water is used effectively to extinguish fire. That water will put out fire is a fact of everyday experience, but no analysis of water could ever be made to disclose such a property. Analysis determines that water is composed of hydrogen

있음을 결정하며;이 요소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산소가 연소(燃燒)를 실제로 도와주고, 수소는 스스로 자유롭게 타오르게 될 것임을 밝혀준다.

두려움에 대한 노예에서 그리고 미신(迷信)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종교는 현실적이 되고 있다. 너희의 철학은 교리와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너희의 과학은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한편, 추상 개념의 속박, 수학의 노예, 그리고 기계적 물질주의의 상대적 무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싸운다.

필사적 사람은 일종의 영 핵심을 갖고 있다. 정신은 신성한 영 핵심 주변에 존재하는, 그리고 물질 환경에서 작용하는, 인격있는_에너지 체계다. 인격있는 정신과 영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가, 영원한 인격의 우주 잠재력을 구성한다. 자아_개념이 중앙의 영 핵심의 지배 능력을 감히 온전하게 갈아치우고, 그리하여 인격 정체성의 시공우주 짜임새를 붕괴시킨 후에야, 실제적인 어려움, 계속되는 실망, 심각한 패배, 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도래할 수 있다.

[태고 항존자들의 권위로 활동하는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and oxygen; a further study of these elements discloses that oxygen is the real supporter of combustion and that hydrogen will itself freely burn.

12:9.5 (141.6) Your religion is becoming real because it is emerging from the slavery of fear and the bondage of superstition. Your philosophy struggles for emancipation from dogma and tradition. Your science is engaged in the agelong contest between truth and error while it fights for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abstraction, the slavery of mathematics, and the relative blindness of mechanistic materialism.

12:9.6 (142.1) Mortal man has a spirit nucleus. The mind is a personal-energy system existing around a divine spirit nucleus and functioning in a material environment. Such a living relationship of personal mind and spirit constitutes the universe potential of eternal personality. Real trouble, lasting disappointment, serious defeat, or inescapable death can come only after self-concepts presume fully to displace the governing power of the central spirit nucleus, thereby disrupting the cosmic scheme of personality identity.

12:9.7 (142.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제13편. 낙원의 신성시되는 구체들

⇨ 012

유랜시아 책

014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3편

낙원의 신성시되는 구체들

섹션

소개

1.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
2. 아버지_세계에 대한 관계
3. 영원한 아들의 신성시되는 세계
4. 무한한 영의 세계들

소개

하보나 행성 회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와, 중앙의 **낙원 섬** 사이 공간에는, 특별한 구체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세 회로가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는, **만유의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로 이뤄져 있으며; 둘째 집단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세계로 구성돼 있으며; 가장 외부는, **무한한 영**의 거대한 일곱 구체, 즉 **일곱 으뜸 영**의 행정_본부 세계로 돼있다.

각각 일곱_세계로 구성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 세 회로는, 최고의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이다. 이것들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구조도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계층에 속한다. 각 회로는 물질적으로 다양하며, 물리적 구조에서 비슷한 **아들**의 일곱 세계를 제외하고, 각 회로의 각 세계는 서로 다르다. 21개 전체는 거대한 구체이며, 일곱 개로 구성된 각 집단은 서로 다르게 영존화 돼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들은 항상 있어 왔으며; **낙원**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이것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승{傳乘}도 없다.

영원한 **섬**에 아주 근접된 상태에서 **낙원**을 들고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는, 영원한 **신격**들의 중앙 발광체의 영적 광명을 대단히

PAPER 13

THE SACRED SPHERES OF PARADI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2. Father-World Relationships
3. The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4. The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INTRODUCTION

13:0.1 (143.1) BETWEEN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and the innermost of the Havona planetary circuits there are situated in space three lesser circuits of special spheres. The innermost circuit consists of the seven secret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econd group is composed of the seven luminous worlds of the Eternal Son; in the outermost are the seven immen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executive-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3:0.2 (143.2) These three seven-world circuit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re spheres of unexcelled grandeur and unimagined glory. Even their material or physical construction is of an order unrevealed to you. Each circuit is diverse in material, and each world of each circuit is different excepting the seven worlds of the Son, which are alike in physical constitution. All twenty-one are enormous spheres, and each group of seven is differently eternalized. As far as we know they have always been; like Paradise they are eternal. There exists neither record nor tradition of their origin.

13:0.3 (143.3) The seven secret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circulating about Paradise in close proximity to the eternal Isle, are highly

반사하는데, **낙원** 도처에, 그리고 심지어 일곱 **하보나** 회로에도, 이 신성한 영광의 빛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들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에서는, 영 발광체의 비인격 에너지들이 기원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인격있는 존재든지, 빛나는 이 일곱 영역 가운데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다. 이것들은 영적 영광으로 **낙원**과 **하보나** 전체를 밝혀주고, 일곱 연방우주를 향해 순수한 영 발광체의 방향을 잡아준다. 둘째 회로에서 빛나는 이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낙원**을 향해서, 그리고 일곱으로 회로화 된 중앙우주의 수많은 세계를 향해서 자체의 빛을(곧 열 없는 빛을) 내뿜는다.

무한한 영의 일곱 세계는, 일곱 연방우주의 운명을 관장하고,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를 향해서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의 영적 빛을 내보내는 **일곱 으뜸 영**이 차지한다. **낙원** 섬은 제외하고, **하보나** 전체가, 영화{靈化} 시키는 이 영향 안에 잠겨 있다.

비록 **아버지**의 세계들이, **아버지**가 부여된 인격체들 전체를 위한 궁극 상태의 구체라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독자적 기능은 아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많은 존재 및 실체가 이 세계들에 머문다. **아버지**의 회로와 **영**의 회로에 있는 각 세계에는 뚜렷한 유형의 영구 시민이 있지만, **아들**의 세계들에는 확일적인 유형의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들이 거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버지** 단편들은 **디비닝톤** 원주민에 속하며; 다른 계층의 영구 시민은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21개의 **낙원** 위성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에서, 본 문서들에 밝히지 않은 여러 목적에 이바지한다. 본성에 대해서 또는 기능에 대해서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얻기를 바라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이 구체들의 생애에 관해 알지 못하며;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1개의 이 구체는 총괄우주 기능의 잠재력을 포함한다. 본 문서들은 광우주에서--아니 광우주의 일곱 구역 가운데 한 구역에서, 현재 우주 시대에 어울리는, 범위가 정해진 특정한 활동을 얼핏 훑어보게 할 뿐이다.

1.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

신성시되는 생명 구체들이 속해있는 **아버지**의 회로는, 온갖 우주에서 유일한 고유의 인격 비밀을 포함한다. 세 회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낙원** 위성들은, 중앙우주에서 인격체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금지된 영토다. **아들**의 세계들과

reflective of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central shining of the eternal Deities, shedding this light of divine glory throughout Paradise and even up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13:0.4 (143.4) On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there appear to take origin the impersonal energies of spirit luminosity. No personal being may sojourn on any of these seven shining realms. With spiritual glory they illuminate all Paradise and Havona, and they directionize pure spirit luminosity to the seven superuniverses. These brilliant spheres of the second circuit likewise emit their light (light without heat) to Paradise and to the billion worlds of the seven-circuited central universe.

13:0.5 (143.5) The seven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are occupi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nding forth the spiritual illumination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to thes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nd all Havona, but not the Isle of Paradise, is bathed in these spiritualizing influences.

13:0.6 (143.6) Although the worlds of the Father are ultimate status spheres for all Father-endowed personalities, this is not their exclusive function. Many beings and entities other than personal sojourn on these worlds. Each world in the circuit of the Father and the circuit of the Spirit has a distinct type of permanent citizenship, but we think the Son's worlds are inhabited by uniform types of other-than-personal beings. Father fragments are among the natives of Divinington; the other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are unrevealed to you.

13:0.7 (143.7) The twenty-one Paradise satellites serve many purposes in both central and superuniverses not disclosed in these narratives. You are able to understand so little of the life of these spheres that you cannot hope to gain anything like a consistent view of them, either as to nature or function; thousands of activities are there going on which are unrevealed to you. These twenty-one spheres embrace the *potentials* of the function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papers afford only a fleeting glimpse of certain circumscribed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present universe age of the grand universe — rather, one of the seven sectors of the grand universe.

1.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13:1.1 (144.1) The Father's circuit of sacred life spheres contains the only inherent personality secret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se satellites of Paradise, the innermost of the three circuits, are the only forbidden domains concerned

하부 낙원 역시 인격체들에게 차단돼 있지만, 그 영역 가운데 어느 곳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격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낙원 세계들은,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 즉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의 지시를 받는다. 이 세계들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정보는, 거기서 작용하고 거기서 나가는 존재들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이 세계 중에서 여섯 개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디비닝톤**에는 가 본 적이 없으며; 그 세계는 내게 전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세계들이 비밀에 싸여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성시되는 이 구체들은 각각, **낙원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격들**의 특화된 표현 또는 형태화를 누리기 때문이며; 인격체가 아니라, 특별한 그 지성체 집단들이 감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특한 **신성** 현존만이, 특별한 그 구체에 거주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들은, 특화되고 인격아닌 이 **신성** 현존들에 대한 개인적 대리인이다. 그리고 **지존성의 비밀**들은 고도로 인격있는 존재인데, 뛰어난 재질을 타고났으며, 고양되고 힘든 업무에 놀라운 정도로 적응돼 있다.

1. **디비닝톤**. 이 세계는, 독특한 의미로 볼 때, “**아버지의 품**”, 즉 **만유의 아버지**가 친히 교류하시는 구체이며, 그의 신성이 여기서 특별하게 형태화 된다. **디비닝톤**은 **사고 조율사들**의 **낙원 회합**(會合) 장소이지만, 또한 수많은 다른 실체, 인격체,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원한 아들**을 제외한 많은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의 단독 행동으로 인해 직접 기원된다. 오직 **아버지** 단편과,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직접 독점적으로 기원된 그 인격체들 및 다른 존재들만이, 이 거주지에서 교제하고 활동한다.

디비닝톤의 비밀 중에는 **사고 조율사**의 증여 및 사명에 관한 비밀이 있다. 그들의 본성, 기원, 그리고 그들이 진화 세계의 초라한 피조물과 접촉하는 기법은, 이 **낙원** 구체의 비밀이다. 놀라운 이 처리사항은, 우리 같은 존재가 직접 상관할 바는 아니며, 그러므로 **신격들**은, 이 위대하고 신성한 사역의 특별한 특색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신성한 활동의 이 국면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처리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허락을 받지만, 이 위대한 증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는 못한다.

이 구체는 또한, 모든 다른 형태의 **아버지**의 단편, **인력**(引力) **전달자**, 그리고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존재로 구성된 무리의 본질, 목적, 및

with personality in the central universe. Nether Paradise and the worlds of the Son are likewise closed to personalities, but neither of those realms is in any way directly concerned with personality.

13.1.2 (144.2) The Paradise worlds of the Father are directed by the highest order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Of these worlds I can tell little; of their manifold activities I may tell less. Such information concerns only those beings who function thereon and go forth therefrom. And though I am somewhat familiar with six of these special worlds, never have I landed on Divinington; that world is wholly forbidden to me.

13.1.3 (144.3) One of the reasons for the secrecy of these worlds is because each of these sacred spheres enjoys a specialized representation, or manifestation, of the Deities composing the Paradise Trinity; not a personality, but a unique presence of Divinity which can only be appreciated and comprehended by those particular groups of intelligences resident on, or admissible to, that particular sphere.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are the personal agents of these specialized and impersonal presences of Divinity. And the Secrets of Supremacy are highly personal beings, superbly endowed and marvelously adapted to their exalted and exacting work.

13.1.4 (144.4) 1. DIVININGTON. This world is, in a unique sense, the “bosom of the Father,” the personal-communion sphe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reon is a special manifestation of his divinity. Divinington is the Paradise rendezvous of the Thought Adjusters, but it is also the home of numerous other entities, personalities, and other beings taking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Many personalities besides the Eternal Son are of direct origin by the solitary acts of the Universal Father. Only the Father fragments and those personalities and other beings of direct and exclusive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fraternize and function on this abode.

13.1.5 (144.5) The secrets of Divinington include the secret of the bestowal and mission of Thought Adjusters. Their nature, origin, and the technique of their contact with the lowly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is a secret of this Paradise sphere. These amazing transactions do not personally concern the rest of us, and therefore do the Deities deem it proper to withhold certain features of this great and divine ministry from our full understanding. In so far as we come in contact with this phase of divine activity, we are permitted full knowledge of these transactions, but concerning the intimate details of this great bestowal we are not fully informed.

13.1.6 (145.1) This sphere also holds the secrets of the nature, purpose, and activities of all other forms of Father fragments, of the Gravity

활동에 관한 비밀도 간직한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진리, **디비닝톤**에 속하는 그 진리가 계시된다면, 현재의 내 업무에서 다만 나를 혼돈 시키고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 그것들은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것이다.

2. **소나링톤**.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즉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인 영접 세계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분하게 자격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공인될 때, 그리고 그 후에, 하강하고 상승하는 그들의 **낙원** 본부다. 이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아들**, 그리고 그와 동격이고 동역하는 **아들**들의 **낙원** 고향이다.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수많은 계층이 이 숭고한 거주지에 배속됐는데, 이 거주지가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우주들을 거쳐서 **낙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상승 요강 계획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나링톤의 비밀은, 신성한 **아들**의 육신화라는 비밀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때, 글자 그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서 발생했듯이, 그것은 우주의 신비다. 그것은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소나링톤**의 비밀이다. **조울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다. 신성한 **아들**의 육신화는 **아들 하나님**의 신비이며; 이것은 **소나링톤**의 일곱째 구역, 즉 독특한 이 체험을 개인적으로 통과한 그들 외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고정된 신비다. 너희의 상승 생애와 반드시 관계되는 육신화의 그 국면들만이 너희에게 제시돼 왔다.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 사명을 띤, 계시되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낙원 아들**들의 육신화 신비에 해당하는, 많은 다른 국면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소나링톤** 신비들이 있다.

3. **스피링톤**. 이 세계는 “**영의 품**”, 즉 오로지 **무한한 영**을 대변하는 높은 존재들의 **낙원** 고향이다. **일곱 으뜸 영**, 그리고 전체 우주에서 온 그들의 어떤 자손들이 여기에 모인다. 이 천상의 거주지에서는 또한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의 영 인격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시간세계의 필사 피조물을 영원성의 **낙원** 수준까지 증진시키는 계획과 관련되지 않은, 우주의 다양한 활동에 배정된 존재다.

스피링톤의 비밀은 반사성을 갖는 불가해한 신비를 포함한다. 반사성이라는 광대하고 보편적인 현상, 특히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납득하지만,

Messengers, and of hosts of other beings unrevealed to you.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ose truths pertaining to Divinington which are withheld from me, if revealed, would merely confuse and handicap me in my present work, and still again, perhaps they are beyond the conceptual capacity of my order of being.

13.1.7 (145.2) 2. SONARINGTON. This sphere is the “bosom of the Son,” the personal receiving world of the Eternal Son. It is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descending and ascending Sons of God when, and after, they are fully accredited and finally approved. This world is the Paradise home for all Sons of the Eternal Son and of his co-ordinate and associate Sons. There are numerous orders of divine sonship attached to this supernal abode which have not been revealed to mortals since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plans of the ascension scheme of human spiritual progression through the universes and on to Paradise.

13.1.8 (145.3) *The secrets of Sonarington* include the secret of the incarnation of the divine Sons. When a Son of God becomes a Son of Man, is literally born of woman, as occurred on your world nineteen hundred years ago, it is a universal mystery. It is occurring right along throughout the universes, and it is a Sonarington secret of divine sonship. The Adjusters are a mystery of God the Father. The incarnation of the divine Sons is a mystery of God the Son; it is a secret locked up in the seventh sector of Sonarington, a realm penetrated by none save those who have personally passed through this unique experience. Only those phases of incarnation having to do with your ascension career have been brought to your notice. There are many other phases of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of the Paradise Sons of unrevealed types on missions of universe service which are undisclosed to you. And there are still other Sonarington mysteries.

13.1.9 (145.4) 3. SPIRITINGTON. This world is the “bosom of the Spirit,” the Paradise home of the high beings that exclusively represent the Infinite Spirit. Here forgather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ertain of their offspring from all universes. At this celestial abode may also be found numerous unrevealed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beings assigned to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e universe not associated with the plans of upstepping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to the Paradise levels of eternity.

13.1.10 (145.5) *The secrets of Spiritington* involve the impenetrable mysteries of reflectivity. We tell you of the vast and universal phenomenon of reflectivity, more particularly as it is operative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we never fully explain this phenomenon, for we do not fully understand it.

기본적인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스럽다. 반사성은 **영 하나님**의 비밀이다. 너희는 필사자 생존이라는 상승 요강과 관련된 반사성 기능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 왔고,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지만, 반사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국면의 우주 업무가 정상으로 작업하는 데 필수적인 특색이다. **무한한 영**의 이 재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외에 다른 경로에서도 활용된다. 그리고 **스피링톤**의 다른 비밀들이 있다.

4. **바이스저링톤**.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에서 기원된, 어떤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비밀 구체다. 이것은 또한 복합 선조를 갖는, 영화롭게 된 많은 존재, 즉 일곱 연방우주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많은 기법 때문에 그 기원이 복잡하게 된 그들의 **낙원** 고향이기도 하다. 여러 집단의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모이는데, 그들의 정체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다.

바이스저링톤의 비밀은 삼자일체됨의 비밀을 포함하며, 삼자일체됨은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하나님**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권세의 비밀을 구성한다.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권세는, **낙원 삼위일체**의 어떤 두 분 또는 세 분이 삼자일체하거나, 창조하거나, 생겨나게 하거나, 영존화 시킨, 계시된 존재와 계시되지 않은 존재에게만 부여된다. 특정한 유형의 영화롭게 된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행동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인격체들은, 그 삼자일체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개념적 잠재성보다 더 많이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런 피조물은, 그들 부류 모두에게 열려있는, **신격**이 포용하는 경로로 상승할지도 모른다.

삼자일체되지 않은 존재들은, 어느 둘이나 세 **창조주**, 또는 어떤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먼 미래에 영화롭게 된 너의 생애에서, 네가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런 현상을 결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삼자일체되지 않으면 **바이스저링톤**의 이 비밀은 항상 너에게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높은 존재인 나에게는, **바이스저링톤**의 모든 구역이 열려 있다. 나는 내 기원과 운명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똑같은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신성하게 이 비밀을 지킨다.

유란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는 또 다른 삼자일체되는 형태 및 국면들이 있으며, 개인적 견지에서, 이 체험들은 **바이스저링톤**의 비밀 구역에서 적당하게 보호 받고 있다.

5. **솔리타링톤**.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고,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공동 행위에 의거해서 기원되는, 계시되지 않은 장엄한 무

Much, very much, we do comprehend, but many basic details are still mysterious to us. Reflectivity is a secret of God the Spirit. You have been instructed concerning reflectivity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ascension scheme of mortal survival, and it does so operate, but reflectivity is also an indispensable feature of the normal working of numerous other phases of universe occupation. This endowment of the Infinite Spirit is also utilized in channels other than those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re are other secrets of Spiritington.

13.1.11 (145.6) 4. VICEGERINGTON. This planet is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is the secret sphere of certain unrevealed beings who take origin by the act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is is also the Paradise home of many glorified beings of complex ancestry, those whose origin is complicated because of the many diverse techniques operativ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Many groups of beings forgather on this world whose identity has not been revealed to Urantia mortals.

13.1.12 (146.1) *The secrets of Vicegerington* include the secrets of trinitization, and trinitization constitutes the secret of authority to represent the Trinity, to act as vicegerents of the Gods. Authority to represent the Trinity attaches only to those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who are trinitized, created, eventuated, or eternalized by any two or all three of the Paradise Trinity. Personalities brought into being by the trinitizing acts of certain types of glorified creatures represent no more than the conceptual potential mobilized in that trinitization, albeit such creatures may ascend the path of Deity embrace open to all of their kind.

13.1.13 (146.2) Nontrinitized being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by either two or three Creators or by certain creatures. You will never fully understand such a phenomenon unless, in the far-distant future of your glorified career, you should essay and succeed in such an adventure, because otherwise these secrets of Vicegerington will always be forbidden you. But to me, a high Trinity-origin being, all sectors of Vicegerington are open. I fully understand, and just as fully and sacredly protect, the secret of my origin and destiny.

13.1.14 (146.3) There are still other forms and phases of trinitization which have not been brought to the notice of the Urantia peoples, and these experiences, in their personal aspects, are duly protected in the secret sector of Vicegerington.

13.1.15 (146.4) 5. SOLITARINGTON. This world is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and is the rendezvous of a magnificent host of unrevealed beings of origin in the conjoint acts of the Universal

리의 존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들은 자신의 영 유산{遺産}에 덧붙여서 **아버지**의 특징을 지니는 존재다.

이것은 또한 **단독 사자**들의 고향이고, 최고천사 계층인 다른 인격체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너희는 이 존재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엄청난 숫자의 계층이 있다. 그들이 다섯째 세계에 거주한다고 해서, **단독 사자들** 또는 그들의 최고천사 동역자들을 창조하는 일에 **아버지**가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우주 시대에 그들의 역할에는 관여하셔야 한다. 현 우주 시대 동안, 이것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신분을 유지하는 구체이기도 하다.

수많은 또 다른 영 인격체 계층, 즉 **솔리타링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 구체처럼 여기는, 필사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신성한 **낙원** 운명을 향해 상승하도록 필사적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분야에 영 사역자들이 마련된 것처럼, 모든 부서와 수준의 우주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솔리타링톤의 비밀들. 삼자일체되는 어떤 비밀들 외에도, 이 세계는 **무한한 영**이 몸소 **제3 근원 및 중심**의 어떤 높은 후손들과 맺는 관계의 비밀을 간직한다. **솔리타링톤**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영**의 영들과 갖는, **삼위일체**의 삼중적 영과 갖는, 그리고 **지존자**, **궁극자**, 및 **최상급 궁극자**의 영들과 갖는 긴밀한 관계의 신비가 간직돼 있다.

6. **스라빙톤**.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고, **아들**과 **영**이 창조한,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로 구성된 방대한 무리의 고향 세계다. 이것은 또한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및 스라빔을 포함하여, 천사 무리 가운데 모든 돌보는 계층의 운명 구체이기도 하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돌보는 영들”이 아닌, 많은 계층의 뛰어난 영들이 중앙 및 변방 우주들에서 봉사한다. 우주 활동의 모든 수준과 영역에 있는 이 모든 영 일꾼은, **스라빙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으로 간주한다.

스라빙톤의 비밀은 삼중 신비를 포함하는데,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신비는--스랍 운반체의 신비다. 다양한 계층의 스라빔 및 연합한 영 존재들이, 자신의 영 형태 내부에 모든 계층의 비물질 인격체를 감싸는 역량, 그리고 긴 행성 간 여행에서 그들을 운반하는 역량은, **스라빙톤**의 신성시되는 구역에만 공개되는 비밀이다. 운반 스라빔은 이 신비를 납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알려줄 수 없는지도 모른다. **스라빙톤**의 다른 신비는, 아직 필사자에게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영 봉사자가 몸소 겪는 체험과 관계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된 존재들에 대한 논의를 삼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beings who partake of the traits of the Father in addition to their Spirit inheritance.

13.1.16 (146.5) This is also the home of the Solitary Messengers and of other personalities of the superangelic orders. You know of very few of these beings; there are vast numbers of orders unrevealed on Urantia. Because they are domiciled on the fifth world,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the Father had ought to do with the creation of Solitary Messengers or their superangelic associates, but in this universe age he does have to do with their function.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is also the status sphere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13.1.17 (146.6)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beings unknown to mortal man, who look upon Solitar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spher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ll divisions and levels of universe activities are just as fully provided with spirit ministers as is the realm concerned with helping mortal man ascend to his divine Paradise destiny.

13.1.18 (146.7) *The secrets of Solitarington.* Besides certain secrets of trinitization, this world holds the secrets of the personal relation of the Infinite Spirit with certain of the higher offspring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Solitarington are held the mysteries of the intimate association of numerous unrevealed orders with the spirits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with the threefold spirit of the Trinity, and with the spirits of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Supreme-Ultimate.

13.1.19 (146.8) 6. SERAPHINGTON. This sphere is the “bosom of the Son and the Spirit” and is the home world of the vast hosts of unrevealed beings created by the Son and the Spirit. This is also the destiny sphere of all ministering orders of the angelic hosts, including supernaphim, seconaphim, and seraphim. There also serve in the central and outlying universes many orders of superb spirits who are not “ministering spirits to those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All these spirit workers in all levels and realms of universe activities look upon Seraph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13.1.20 (147.1) *The secrets of Seraphington* involve a threefold mystery, only one of which I may mention — the mystery of seraphic transport. The ability of various orders of seraphim and allied spirit beings to envelop within their spirit forms all orders of nonmaterial personalities and to carry them away on lengthy interplanetary journeys, is a secret locked up in the sacred sectors of Seraphington. The transport seraphim comprehend this mystery, but they do not communicate it to the rest of us, or perhaps they cannot. The other mysteries of Seraphington pertain to the personal experiences of types of spirit servers as yet not revealed to

가까운 실존 계층들을 거의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런 현상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 지식이라도 제시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림에 가까울 수도 있다.

7. 어센딩톤. 독특한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품”인데, 공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회합 장소, 즉 그들이 **낙원**으로 가는 길에 **하보나** 우주를 거쳐서 지나가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구체다. **어센딩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혼들이 **낙원** 신분을 획득할 때까지 그들의 실제 **낙원** 고향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자신의 **하보나** “휴가” 대부분을 **어센딩톤**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회상 지휘자들이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 상승 기간에 했던 동일한 역할을, 네가 **하보나**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센딩톤**이 너에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필사자 상상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상승에서 전에 이룬 모든 진보와 마찬가지로, 너의 인간 자아는 여기서 자신의 신성한 자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어센딩톤의 비밀은, 물질적인 인간 정신 안에서, 영적이고 잠재적으로 불멸하는, 성품과 정체성의 사본(寫本)이,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형성되는 신비를 포함한다. 이 현상은 가장 복잡한 우주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필사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의 정신 안에서, 불멸하는 혼이 진화하는 신비다.

어센딩톤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신비로운 진행사항을 너희는 결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경탄하면서 바라보도록 **어센딩톤** 전체가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이유다. **어센딩톤**의 7분의 1은 내게 금지돼 있다--이 구역은 너희 존재 유형의 독점적 체험과 소유인 (또는 소유가 될) 바로 이 비밀과 관련된다. 이 체험은 너희 인간 실존 계층에 속한다. 내가 속한 인격체 계층은, 그런 진행사항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역은 내게 금지돼 있고, 결국 너희에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 밝혀진 후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의 비밀로 남는다. 너희는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다른 어떤 계층의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인간에서 기원되는 불멸하는 혼이, 신성한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하는 것에 관해 알지만, 상승한 완결성취자들은 바로 이 체험이 절대 실체임을 안다.

2. 아버지_세계에 대한 관계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영적 존재의 이 고향 세계들은, 거대하면서 엄청난 구체이고,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최고의 영광은 **낙원**과 대등하다. 이 구체들은, 회합장소 세계, 즉 재결합하는 영역인데, 영구적인 시공우주 주소가 되기에 적합하다. 너희는 완결성취자로서 **낙원**에 살게 되겠지만

mortals. And we refrain from discussing the secrets of such closely related beings because you can almost comprehend such near orders of existence, and it would be akin to betrayal of trust to present even our partial knowledge of such phenomena.

13:1.21 (147.2) 7. ASCENDINGTON. This unique world is the “bosom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the rendezvous of the ascendant creatures of space, the receiving sphere of the pilgrims of time who are passing through the Havona universe on their way to Paradise. Ascendington is the actual Paradise home of the ascendant souls of time and space until they attain Paradise status. You mortals will spend most of your Havona “vacations” on Ascendington. During your Havona life Ascendington will be to you what the reversion directors were during the local and superuniverse ascension. Here you will engage in thousands of activities which are beyond the grasp of mortal imagination. And as on every previous advance in the Godward ascent, your human self will here enter into new relationships with your divine self.

13:1.22 (147.3) *The secrets of Ascendington* include the mystery of the gradual and certain building up in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of a spiritual and potentially immortal counterpart of character and identity. This phenomen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perplexing mysteries of the universes —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within the mind of a mortal and material creature.

13:1.23 (147.4) You will never fully understand this mysterious transaction until you reach Ascendington. And that is just why all Ascendington will be open to your wondering gaze. One seventh of Ascendington is forbidden to me — that sector concerned with this very secret which is (or will be) the exclusive experience and possession of your type of being. This experience belongs to your human order of existence. My order of personality is not directly concerned with such transactions.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me and eventually revealed to you. But even after it is revealed to you, for some reason it forever remains your secret. You do not reveal it to us nor to any other order of beings. We know about the eternal fusion of a divine Adjuster and an immortal soul of human origin, but the ascendant finalizers know this very experience as an absolute reality.

2. FATHER-WORLD RELATIONSHIPS

13:2.1 (147.5) These home worlds of the diverse orders of spiritual beings are tremendous and stupendous spheres, and they are equal to Paradise in their matchless beauty and superb glory. They are rendezvous worlds, reunion spheres, serving as permanent cosmic

만, **어센딩톤**은 언제든지, 심지어 너희가 외부 공간에서 봉사에 참여할 때에도, 너희의 고향 주소가 될 것이다. 전체 영원성 내내, 너희는 **어센딩톤**을 감상적으로 기억하고 추억에 잠겨 회상하는 고향으로 간주할 것이다. 너희가 일곱째 단계의 영 존재가 될 때, 아마 너희는 자신의 **낙원** 거주 신분을 포기할 것이다.

외부 우주들이 조성되고 있다면, 시간세계에서 상승할 잠재성이 있는 피조물이 거기에 거주하게 돼있다면, 미래의 이 자녀들 역시 **어센딩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 세계로 여기게 돼있을 것이라 고, 우리는 추론한다.

어센딩톤은 **낙원**에 도달한 자로서, 네가 시찰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열리게 될 유일한 신성시되는 구체다. **바이스저링톤**은, 내가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완전하게 그리고 제한됨 없이 열리는 유일한 신성시되는 구체다. 비록 그 비밀이 나의 기원과 관련되더라도, 나는 이 우주 시대에 **바이스저링톤**을 내 고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들과 삼자일체된 존재들은 같지 않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는, **아버지**의 세계들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으며; **낙원 섬**의 **최고 거룩 구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의 유일한 고향을 갖는다. 그들은 **어센딩톤**, 즉 “**아버지 아들** 영의 품”에 종종 나타나는데, 공간의 하위 세계들에서 올라온 형제들과 거기서 친하게 지낸다.

아버지 아들에서 기원된 존재인 **창조주 아들**들이 **바이스저링톤**을 자신의 고향으로 간주하게 되리라고, 너희는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칠중 하나님**이 활동하는 이 우주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당황하게 만들 많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낙원**에 매우 가까이 있는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많은 어려움에 확실히 직면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의문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세계들에 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들에 관해서 모두 알기 전에 다만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이 비밀한 세계 어디서든지, 신분은 기원의 본성뿐 아니라 봉사함으로 획득되며,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은 이 인격체 집단화 중에서 어떤 것을 재분배할지도 모르고, 또한 그렇게 하기도 한다.

내부 회로 세계들은, 실제로 거하는 구체라기 보다는 정말로 우에 있는 세계, 즉 신분 세계다. 필사자는, **아버지**의 세계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각 세계에서, 어떤 신분을 달성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너희 필사자는 **하보나**에 도달할 때 **어센딩톤**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데, 거기서 최고로 환영을 받겠지만, 신성시되는 다른 여섯 세계에는 방문할 수 없다. 너희가 **낙원** 체제를 통과한 다음, 그리고 **완결성취 단체**에 받아들여진 후에, **소나링톤**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데, 너희가 상승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addresses. As finaliters you will be domiciled on Paradise, but Ascendington will be your home address at all times, even when you enter service in outer space. Through all eternity you will regard Ascendington as your home of sentimental memories and reminiscent recollections. When you become seventh-stage spirit beings, possibly you will give up your residential status on Paradise.

13:2.2 (148.1) If outer universes are in the making, if they are to be inhabited by time creatures of ascension potential, then we infer that these children of the future will also be destined to look upon Ascend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world.

13:2.3 (148.2) Ascendington is the only sacred sphere that will be unreservedly open to your inspection as a Paradise arrival. Vicegerington is the only sacred sphere that is wholly and unreservedly open to my scrutiny. Though its secrets are concerned in my origin, in this universe age I do not regard Vicegerington as my home. Trinity-origin beings and trinitized beings are not the same.

13:2.4 (148.3) The Trinity-origin beings do not fully share the Father's worlds; they have their sole homes on the Isle of Paradise in close proximity to the Most Holy Sphere. They often appear on Ascendington, the “bosom of the Father-Son-Spirit,” where they fraternize with their brethren who have come up from the lowly worlds of space.

13:2.5 (148.4) You might assume that Creator Sons, being of Father-Son origin, would regard Vicegerington as their home, but such is not the case in this universe age of the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And there are many similar problems that will perplex you, for you are sure to encounter many difficulties as you attempt to understand these things which are so near Paradise. Nor can you successfully reason out these questions; you know so little. And if you knew more about the Father's worlds, you would simply encounter more difficulties until you knew *all* about them. Status on any of these secret worlds is acquired by service as well as by nature of origin, and the successive universe ages may and do redistribute certain of these personality groupings.

13:2.6 (148.5) The worlds of the inner circuit are really fraternal or status worlds more than actual residential spheres. Mortals will attain some status on each of the Father's worlds save one. For example: When you mortals attain Havona, you are granted clearance for Ascendington, where you are most welcome, but you are not permitted to visit the other six sacred worlds. Subsequent to your passage through the Paradise regime and after you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you are granted clearance for Sonarington since

너희는 그 이상{以上}이다. 그러나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 비밀 구역인, **소나링톤** 중에서 7분의 1은 항상 남아있게 되는데, 그곳은 너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밀은 상송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결코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너는 **어센딩톤**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며, **디비닝톤**을 제외한, **아버지**의 다른 구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완결성취자가 된 후에, 다섯 개의 추가적 비밀 구체에 상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때라도, 그런 세계의 모든 구역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속 분명하게 서 있게 되더라도, 너는 **“아버지**의 품”인 **디비닝톤**의 기슭에 상륙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성 내내, 네가 **사고 조울사** 세계에 출현해야 할 어떤 필요성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 생명의 이 집결지 세계들은, 우리의 체험 영역을 전적으로 벗어나는 이 구체들의 그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협상하지 말도록 요구받을 정도로, 금지된 지역이다.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가 신격으로서 완전하신 것처럼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주 인격체들 가운데 다른 모든 계층이 체험하는 비밀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과 어떤 체험적 인격체의 비밀을 가질 때, **창조주**는 그 비밀을 영원토록 확실히 지킨다.

이 모든 비밀은,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의 집합체에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 존재들은 오직 자신의 특별 세계 집단에게만 완전하게 알려질 것이며; 다른 계층은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낙원**에 도달한 후에, **어센딩톤**을 감독하는 열 명의 **지존성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센딩톤**의 경우처럼 그렇게 완전하게는 아니라도, **디비닝톤** 외에는, 너희가 **아버지**의 다른 세계에서 **지존성의 비밀**들에 대한 부분적 이해 또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지존자**와 관련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궁극자**에게, 그리고 미래의 **최상급 궁극자**에게 관련된다. 이 **지존성의 비밀**들은 **지존자**의 비밀인 동시에 **궁극자**의 비밀이고, 심지어 **최상급 궁극자**의 비밀이다.

3. 영원한 아들의 신성시되는 세계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구체는, 순수한 영{靈} 실존의 일곱 국면에 해당하는 세계다. 빛나는 이 천체{天體}들은, **낙원**과 **하보나**의 삼중적 빛의 근원인데, 그 영향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체로

you are sons of God as well as ascenders — and you are even more. But there will always remain one seventh of Sonarington, the sector of the incarnation secrets of the divine Sons, which will not be open to your scrutiny. Never will those secrets be revealed to the ascendant sons of God.

13:2.7 (148.6) Eventually you will have full access to Ascendington and relative access to the other spheres of the Father except Divinington. But even when you are granted permission to land on five additional secret spheres, after you have become a finaliter, you will not be allowed to visit all sectors of such worlds. Nor will you be permitted to land on the shores of Divinington, the “bosom of the Father,” though you shall surely stand repeatedly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Never throughout all eternity will there arise any necessity for your presence on the world of the Thought Adjusters.

13:2.8 (149.1) These rendezvous worlds of spirit life are forbidden ground to the extent that we are asked not to negotiate entrance to those phases of these spheres which are wholly outside our realms of experience. You may become creature perfect even as the Universal Father is deity perfect, but you may not know all the experiential secrets of all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When the Creator has an experiential personality secret with his creature, the Creator preserves that secret in eternal confidence.

13:2.9 (149.2) All these secrets are supposedly known to the collective body of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se beings are fully known only by their special world groups; they are little comprehended by other orders. After you attain Paradise, you will know and ardently love the ten Secrets of Supremacy who direct Ascendington. Excepting Divinington, you will also achieve a partial understanding of the Secrets of Supremacy on the other worlds of the Father, though not so perfectly as on Ascendington.

13:2.10 (149.3)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as their name might suggest, are related to the Supreme; they are likewise related to the Ultimate and to the future Supreme-Ultimate. These Secrets of Supremacy are the secrets of the Supreme and also the secrets of the Ultimate, even the secrets of the Supreme-Ultimate.

3. THE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13:3.1 (149.4) The seven luminous spheres of the Eternal Son are the worlds of the seven phases of pure-spirit existence. These shining orbs are the source of the threefold light of Paradise and

중앙우주에 국한된다.

이 **낙원** 위성들에는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순수한 영 거주지들에 관해서, 필사의 물질 인격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세계들은, **영원한 아들**의 존재들, 즉 인격있지 않은 다른 생명체로 채워져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우리는 이 실체들이 외부 우주의 입안된 새 우주에서 사역하도록 소집된다고 들었다. **낙원**의 철학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억 년에 해당하는 각각의 **낙원** 주기마다, **영원한 아들**의 비밀 세계들에서 이 계층에 해당하는 추가적 예비군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한 아들**의 이 구체들 가운데 어느 곳에도, 인격체가 존재한 적이 전혀 없다. 나는 **낙원** 안팎에서 길게 체험 동안 내내, 이 세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방문하도록 배정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영원한 아들**이 공동으로 창조한 인격체도, 이 세계들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비인격 영이 --출신에 상관없이-- 영 고향에 가도록 허용된다고 추측한다. 내가 한 인격자로서 그리고 영 형태를 갖고 그런 세계에 방문하도록 허용됐더라도, 그 세계가 비어있고 황폐한 것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높은 영 인격체들은, 무의미한 호기심을 채우는, 순전히 쓸모없는 모험에 한눈팔지 않는다.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모험이 항상 너무 많아서, 무익하거나 비현실적인 기획에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허용할 수 없다.

4. 무한한 영의 세계들

하보나 내부 회로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 사이에서, **무한한 영**의 일곱 천체(天體)가 돌고 있는데, 이 천체들에는 **무한한 영**의 자손, 영화롭게 된 피조 인격체의 삼자일체된 아들들, 다양한 분야의 우주 활동을 하는 많은 사업체의 효과적 경영에 관여하는, 계시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존재들이 거주한다.

일곱 으뜸 영은 **무한한 영**의 최상의 궁극적 대행자다. 그들은 **낙원** 주변에 자신의 개인 거점(據點), 즉 동력 중심지들을 유지하지만, 광우주의 관리와 지휘에 관련된 모든 운영은, **무한한 영**의 이 일곱 특별 행정 구체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처리된다. **일곱 으뜸 영**은 실제로, 온갖 우주의 정신 영의 평형 원동력, 즉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를 둘러싸는, 그리고 전체를 조화시키는, 중앙에 자리잡은 권능이다.

이 특별한 일곱 구체로부터, **으뜸 영**들은 광우주의 시공우주_정신 회로들을 평형시키고 안정

Havona, their influence being largely, but not wholly, confined to the central universe.

13:3.2 (149.5) Personality is not present on these Paradise satellites; therefore is there little concerning these pure-spirit abodes which can be presented to the mortal and material personality. We are taught that these worlds teem with the otherwise-than-personal life of the beings of the Eternal Son. We infer that these entities are being assembled for ministry in the projected new universes of outer space. The Paradise philosophers maintain that each Paradise cycle, about two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witnesses the creation of additional reserves of these orders on the secret worlds of the Eternal Son.

13:3.3 (149.6) As far as I am informed, no personality has ever been on any one of these spheres of the Eternal Son. I have never been assigned to visit one of these worlds in all my long experience in and out of Paradise. Even the personalities cocreated by the Eternal Son do not go to these worlds. We infer that all types of impersonal spirits — regardless of parentage — are admitted to these spirit homes. As I am a person and have a spirit form, no doubt such a world would seem empty and deserted even if I were permitted to pay it a visit. High spirit personalities are not given to the gratification of purposeless curiosity, purely useless adventure. There is at all times altogether too much intriguing and purposeful adventure to permit the development of any great interest in those projects which are either futile or unreal.

4. THE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13:4.1 (149.7) Between the inner circuit of Havona and the shining spheres of the Eternal Son there circle the seven orbs of the Infinite Spirit, worlds inhabited by the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by the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created personalities, and by other types of unrevealed beings concerned with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e many enterprises of the various realms of universe activities.

13:4.2 (150.1)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supreme and ultimate representative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maintain their personal stations, their power focuses, on the periphery of Paradise, but all operations concerned with their management and direction of the grand universe are conducted on and from these seven special executiv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reality, the mind-spirit balance whee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 all-embracing, all-encompassing, and all-coordinating power of central location.

13:4.3 (150.2) From these seven special spheres the Master Spirits operate to equalize and stabilize the

시키려고 활동한다. 또한 그들은 광우주 전역에서, **신격**들의 특이한 영적 입장 및 현존과 관련된다. 물리적 반작용은 균일하고 변함없으며 항상 즉시 일어나고 자동적이다. 그러나 체험적인 영적 현존은, 그 영역의 개별 정신들에 본래 있는 영적 감수성의 기본 조건 또는 상태와 일치한다.

물리적 권세와 현존과 기능은, 크고 작은 모든 우주에서 동일하다. 영적 현존 또는 반응에서 차이 나는 요소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변동하는 격차다.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신격**의 영적 현존은, 피조된 존재의 편에서 보이는 충성 또는 불충성 태도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준절대적이고 체험적인 **신격**의 기능 발휘 현존은, 그런 유한한 피조 존재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의지 태도에--곧 개별 존재, 행성, 체계, 성좌, 또는 우주의 충성과 헌신에--확실히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神性)의 이 영적 현존은, 변덕스럽지 않고 독단적이지도 않으며; 그 체험적 변화는 인격있는 피조물의 자유의지 재능에 내재한다.

영적 현존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너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으며, 바로 너희의 선택 방법에, 너희의 정신의 결정에, 그리고 너희의 의지의 결정에 들어 있다. 이런 다양성은, 인격있는 지성적 존재들의 자유의지 반응에 내재하는데, **만유의 아버지**가 예정하신 존재들은 이런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신격**들은, 피조물이 선택하는 이 다양한 조건과 요구를 맞추고 만족시킬 때, 그들의 영들을 보내고 물려나게 하는 정도가 언제나 정확하신타, 때로는 **신격**들의 현존을 간절히 바라는 데 반응해서, **신격**들의 현존을 더욱 증여하기도 하고, 신이 증여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피조물이 불리하게 결정하는 대로 다시 물려나기도 하신다. 이처럼 신(神)의 영은 그런 영역에 속한 피조물의 선택에 겸손히 순종한다.

일곱 으뜸 영의 행정 거주지들은 실제로, 일곱 연방우주 및 외부 공간의 관련된 부분들의 **낙원** 본부다. 각 **우름 영**이 하나의 연방우주를 관장하고, 이 일곱 세계 각각은 **우름 영** 가운데 한 분에게 독점적으로 배정돼 있다. 일곱 연방우주의 경영, 즉 **낙원** 이하의 경영에서, 이 행정 세계들이 보살피지 않은 국면은 글자 그대로 하나도 없다. 이 세계들은 **아버지**의 구체들 또는 **아들**의 구체들처럼 그렇게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비록 거주 신분이 토착 존재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제한돼 있더라도, 이 일곱 경영 행성은 그것을 방만하고자 하는,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항상 열려 있다.

cosmic-mind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They also have to do with the differential spiritual attitude and presence of the Deitie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Physical reactions are uniform, unvarying, and always instantaneous and automatic. But experiential spiritual presence is in accordance with the underlying conditions or states of spiritual receptivity inherent in the individual minds of the realms.

13:4.4 (150.3) Physical authority, presence, and function are unvarying in all the universes, small or great. The differing factor in spiritual presence, or reaction, is the fluctuating differential in its recognition and reception by will creatures. Whereas the spiritual presence of absolute and existential Deity is in no manner whatever influenced by attitudes of loyalty or disloyalty on the part of created beings, at the same time it is true that the functioning presence of subabsolute and experiential Deity is definitely and directly influenced by the decisions, choices, and will-attitudes of such finite creature beings — by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individual being,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universe. But this spiritual presence of divinity is not whimsical nor arbitrary; its experiential variance is inherent in the freewill endowment of personal creatures.

13:4.5 (150.4) The determiner of the differential of spiritual presence exists in your own hearts and minds and consists in the manner of your own choosing, in the decisions of your minds, and in the determination of your own wills. This differential is inherent in the freewill reactions of intelligent personal beings, beings whom the Universal Father has ordained shall exercise this liberty of choosing. And the Deities are ever true to the ebb and flow of their spirits in meeting and satisfying the conditions and demands of this differential of creature choice, now bestowing more of their presence in response to a sincere desire for the same and again withdrawing themselves from the scene as their creatures decide adversely in the exercise of their divinely bestowed freedom of choice. And thus does the spirit of divinity become humbly obedient to the choosing of the creatures of the realms.

13:4.6 (150.5) The executive abod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reality,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ir correlated segments in outer space. Each Master Spirit presides over one superuniverse, and each of these seven worlds is exclusively assigned to one of the Master Spirits. There is literally no phase of the sub-Paradise administr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hich is not provided for on these executive worlds. They are not so exclusive as the spheres of the Father or those of the Son, and though residential status is limited to native beings and those who work thereon, these seven administrative planets are

낙원 바깥쪽에서, 이 행정 세계들이 나에게 가장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곳이다. 수많은 다양한 수준에서 하는, 즉 동시에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업무들과 관련이 있고 그토록 많은 다른 계층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넓은 우주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임무에서 한동안 물러나 있을 때, **낙원** 또는 **하보나**에 있을 기회가 된다면, 나는 대개 이 **일곱 으뜸 영**의 바쁜 세계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사업, 헌신, 충성, 지혜, 및 효율성이 있는 그런 광경으로 내 정신을 고무시키기 위해서였다. 우주 실체의 일곱 수준 전체에서, 인격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놀라운 상호관계를, 나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자와, 그토록 속속들이 즐기면서 일하는 자들의 활동에, 나는 항상 자극을 받는다.

[**우버사**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always open to all beings who desire to visit them, and who can command the necessary means of transit.

13:4.7 (151.1) To me, these executive worlds are the most interesting and intriguing spots outside of Paradise. In no other place in the wide universe can one observe such varied activities, involving so many different orders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operations on so many diverse levels, occupations at onc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When I am accorded a period of release from assignment, if I chance to be on Paradise or in Havona, I usually proceed to one of these busy world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re to inspire my mind with such spectacles of enterprise, devotion, loyalty, wisdom, and effectiveness. Nowhere else can I observe such an amazing interassociation of personality performances on all seven levels of universe reality. And I am always stimulated by the activities of those who well know how to do their work, and who so thoroughly enjoy doing it.

13:4.8 (151.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14편. 신성한 중앙우주

⇨ 013

유랜시아 책

015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4편
신성한 중앙우주

섹션

소개

1. 낙원_하보나 체계
2. 하보나의 구조
3. 하보나 세계들
4. 중앙우주의 피조물
5. 하보나에서 지내는 생애
6. 중앙우주의 목적

소개

완전하고 신성한 우주가, 전체 창조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원한 중심의 주변을, 광대한 시간 공간 창조물이 회전한다. **낙원**은, 절대로 안정된, 핵심에 있는 거대한 **섬**이며, 웅대하고 영원한 우주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있다. 중앙에 있는 이 행성 집단은 **하보나**라고 불리며,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보나**는 막대한 용적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질량에 해당하는, 10억 구체로 이뤄져 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뛰어나게 화려한 이 방대한 창조물의 진짜 크기는, 인간 정신의 분별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벗어난다.

하보나는 유일하게 안정되고, 완전하고, 확립된 세계들의 집합체다. **하보나**는 온전하게 창조되고 완전한 우주이며; 진화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한, 완전한 핵심이며, 굉장한 진화 실험을 구성하는 끝없는 우주들의 행렬이 그 핵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데, 이 실험은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의 대담한 모험이며, 이 **아들**들은 원형{原型} 우주를 시간세계에서 복제하고 공간 속에서 재생하기를 열망하는데, 이 원형 우주는, 신성한 완벽함, 최상의 완결성, 궁극적 실체, 및 영원

PAPER 14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dise-Havona System
2. Constitution of Havona
3. The Havona Worlds
4.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5. Life in Havona
6. The Purpose of the Central Universe

INTRODUCTION

14:0.1 (152.1) THE perfect and divine universe occupies the center of all creation; it is the eternal core around which the vast creations of time and space revolve. Paradise is the gigantic nuclear Isle of absolute stability which rests motionless at the very heart of the magnificent eternal universe. This central planetary family is called Havona and is far-distant from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t is of enormous dimensions and almost unbelievable mass and consists of one billion spheres of unimagined beauty and superb grandeur, but the true magnitude of this vast creation is really beyond the understanding grasp of the human mind.

14:0.2 (152.2) This is the one and only settled, perfect, and established aggregation of worlds. This is a wholly created and perfect universe; it is not an evolutionary development. This is the eternal core of perfection, about which swirls that endless procession of universes which constitute the tremendous evolutionary experiment, the audacious adventure of the Creator Sons of God, who aspire to duplicate in time and to reproduce in space the pattern universe, the ideal of divine completeness, supreme finality, ultimate reality,

한 완전성의 이상{理想}이다.

and eternal perfection.

1. 낙원_하보나 체계

낙원 주변지역에서 일곱 연방우주의 내부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일곱 공간 상황 및 운동이 있다:

1. **낙원**에 맞닿은 정지된 중간_공간 지대.
2. 세 **낙원** 회로 및 일곱 **하보나** 회로의 시계 방향 행렬.
3. 중앙우주의 흑암 인력 본체들로부터 **하보나** 회로들을 구분시키는 약간고요한 공간 지대.
4. 반시계방향으로_움직이는, 안쪽의 흑암 인력 본체들의 띠.
5. 흑암 인력 본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구분하는, 독특한 둘째 공간 지대.
6. **낙원**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띠.
7. 일곱 연방우주의 가장 안쪽 회로들로부터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띠를 분리시키는 셋째 공간 지대 --약간고요한 지대.

하보나의 10억 세계는, 세 회로의 **낙원** 위성들을 바로 감싸는 일곱 동심{同心} 회로에 배열돼 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회로에는 3천 500만 이상{以上}의 세계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2억 4천 500만 이상 있으며, 그 사이에는 비례하는 숫자가 있다. 각 회로{回路}가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히 균형 잡혀 있고 절묘하게 조직돼 있으며, 각 회로에는 **무한한 영**의 특화된 대표, 즉 **일곱 회로 영** 가운데 하나로 충만 돼 있다. 이 비인격 **영**은, 다른 기능들 외에도, 각 회로 전반에 걸쳐 천상{天上}의 직무의 진행을 조화시킨다.

하보나 행성 회로들은 포개져 있지 않으며;그 여러 회로의 세계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행진하면서 서로를 따라간다. 중앙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평면에서, 정지된 **낙원 섬** 주변을 도는데, 10개의 안정된 동심{同心} 단위를--곧 세 회로의 **낙원** 구체들 및 일곱 회로의 **하보나** 세계들을-- 구성한다. 물리적으로 보면, **하보나**와 **낙원** 회로들은 모두 동일한 체계이며;기능상 및 경영상 분리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할 뿐이다.

낙원에서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며;이어지는 사건들의 차례는 중앙 **섬**의 토착민들의 개념에 본래부터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하보나** 회로들에

1. THE PARADISE-HAVONA SYSTEM

14.1.1 (152.3) From the periphery of Paradise to the inner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are the following seven space conditions and motions:

14.1.2 (152.4) 1. The quiescent midspace zones impinging on Paradise.

14.1.3 (152.5) 2. The clockwise processional of the three Paradise and the seven Havona circuits.

14.1.4 (152.6) 3. The semiquiet space zone separating the Havona circuits from the dark gravity bodies of the central universe.

14.1.5 (152.7) 4. The inner, counterclockwise-moving belt of the dark gravity bodies.

14.1.6 (152.8) 5. The second unique space zone dividing the two space paths of the dark gravity bodies.

14.1.7 (152.9) 6. The outer belt of dark gravity bodies, revolving clockwise around Paradise.

14.1.8 (152.10) 7. A third space zone — a semiquiet zone — separating the outer belt of dark gravity bodies from the innermost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4.1.9 (152.11)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are arranged in seven concentric circuit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three circuits of Paradise satellites. There are upwards of thirty-five million worlds in the innermost Havona circuit and over two hundred and forty-five million in the outermost, with proportionate numbers intervening. Each circuit differs, but all are perfectly balanced and exquisitely organized, and each is pervaded by a specialized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one of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In addition to other functions this impersonal Spirit co-ordinates the conduct of celestial affairs throughout each circuit.

14.1.10 (153.1) The Havona planetary circuits are not superimposed; their worlds follow each other in an orderly linear procession. The central universe whirls around the stationary Isle of Paradise in one vast plane, consisting of ten concentric stabilized units — the three circuits of Paradise spheres and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worlds. Physically regarded, the Havona and the Paradise circuits are all one and the same system; their separation is in recognition of functional and administrative segregation.

14.1.11 (153.2) Time is not reckoned on Paradise; the sequence of successive events is inherent in the concept of those who are indigenous to the central

계, 그리고 거기 머무는 하늘과 땅에서 기원된 수많은 존재에게 밀접한 상관이 있다. 각 **하보나** 세계마다 자체의 국지적 시간을 갖고, 그 회로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어진 회로에 있는 모든 세계는 1년의 기간이 같은데, 이 세계들이 **낙원** 주변을 균일하게 회전하기 때문이며, 이 행성 년수의 길이는 가장 바깥쪽 회로로부터 가장 안쪽 회로까지 점점 줄어든다.

하보나 회로 시간 외에도, **낙원_하보나** 표준일(標準日) 및 기타 시간 명칭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은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위성에서 결정되고, 거기로부터 시간이 전달된다. **낙원_하보나** 표준일은, 첫째 회로, 즉 안쪽 **하보나** 회로의 행성 거주자들이 **낙원 섬** 주변을 한 번 다 돌기까지 걸리는 시간 길이에 기초하며; 그 속도가 엄청나더라도, 흑암 인력 본체들과 거대한 **낙원** 사이에 자리 잡은 덕분에, 이 구체들이 회로를 다 돌기까지는 거의 1,000년이 소요된다.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한 밤의 순간 같다”는 문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너희는 그 진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다. **낙원_하보나** 1일은, 오늘날 윤년(閏年)이 있는 **유란시아** 달력으로 1,000년보다 정확히 7분, 3과 8분의 1초만큼 짧다.

비록 각 연방우주가 자체 내 표준 시간을 갖더라도, 이 **낙원_하보나** 하루가 일곱 연방우주에게 표준시간 측정기준이다.

이 방대한 중앙우주 변두리에, 즉 **하보나** 세계의 일곱째 띠 너머 멀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이 돌고 있다. 때를 이루는 이 흑암 덩어리들은, 여러 특색에서 다른 천체들과 매우 다르며; 심지어 형태에서도 매우 다르다. 이 흑암 인력 본체들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 물리적 에너지 빛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보나**를 너무 완전하게 에워싸면서 뒤덮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시간과 공간 속에 가까이 있는 인간거주 우주들에서 관측하지 못할 정도다.

흑암 인력 본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점유로 인해 똑같은 두 타원형 회로로 나뉜다. 내부 띠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외부 띠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교대되는 이 운동 방향은, 흑암 본체들의 색다른 질량과 함께, **하보나** 인력 계통들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해서, 중앙우주를 물리적으로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안정된 창조물이 되게 한다.

흑암 인력 본체들의 내부 행렬(行列)은, 회전하는 세 집단을 구성하는, 관 모양의 배열을 이룬다. 이 회로의 횡단면은 거의 같은 밀도의 세 동심 궤도로 보일 것이다.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회로는 수직으로 배열되는데, 내부 회로보다 1만 배 높다. 외부 회로의 위_아래 직경은 가로축 직경보

Isle. But time is germane to the Havona circuits and to numerous beings of both celestial and terrestrial origin sojourning thereon. Each Havona world has its own local time, determined by its circuit. All worlds in a given circuit have the same length of year since they uniformly swing around Paradise, and the length of these planetary years decreases from the outermost to the innermost circuit.

14:1.12 (153.3) Besides Havona-circuit time, there is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and other time designations which are determined on, and are sent out from,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is based on the length of time required for the planetary abodes of the first or inner Havona circuit to complete one revolution around the Isle of Paradise; and though their velocity is enormous, owing to their situation between the dark gravity bodies and gigantic Paradise, it requires almost one thousand years for these spheres to complete their circuit. You have unwittingly read the truth when your eyes rested on the statement “A day is as a thousand years with God, as but a watch in the night.” One Paradise-Havona day is just seven minutes, three and one-eighth seconds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of the present Urantia leap-year calendar.

14:1.13 (153.4) This Paradise-Havona day is the standard time measurement for the seven superuniverses, although each maintains its own internal time standards.

14:1.14 (153.5) On the outskirts of this vast central universe, far out beyond the seventh belt of Havona worlds, there swirl an unbelievable number of enormous dark gravity bodies. These multitudinous dark masses are quite unlike other space bodies in many particulars; even in form they are very different. These dark gravity bodies neither reflect nor absorb light; they are nonreactive to physical-energy light, and they so completely encircle and enshroud Havona as to hide it from the view of even near-by inhabited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1.15 (153.6) The great belt of dark gravity bodies is divided into two equal elliptical circuits by a unique space intrusion. The inner belt revolves counterclockwise; the outer revolves clockwise. These alternate directions of motion, coupled with the extraordinary mass of the dark bodies, so effectively equalize the lines of Havona gravity as to render the central universe a physically balanced and perfectly stabilized creation.

14:1.16 (153.7) The inner procession of dark gravity bodies is tubular in arrangement, consisting of three circular groupings. A cross section of this circuit would exhibit three concentric circles of about equal density. The outer circuit of dark gravity bodies is arranged perpendicularly, being

다 5만 배에 달한다.

인력 본체들의 이 두 회로 사이에 끼어있는 공간은, 넓은 전체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 그 안에 전혀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이 구역은, 오르내리는 본성을 갖는 거대한 파동{波動} 운동이 특징이며,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엄청난 에너지 활동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견해로는, 중앙우주의 흑암 인력 본체들 만큼 외부 공간 층들의 미래 진화에 특징을 부여할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굉장한 인력_평형 본체들의 이 교대 행렬이 총괄우주에서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2. 하보나의 구조

영 존재들은, 모호한 공간에 머물지 않으며; 형체가 없는 세계에 거주하지 않으며; 물질 본성을 갖는 실제 구체, 즉 필사자가 살고 있는 세계처럼 실재하는 세계들에서 산다. **하보나** 세계들은 실제적이고 꾸밈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그 세계들의 실질 내용물은 일곱 연방우주에 속하는 행성들의 물질 조직과는 다르다.

하보나의 물리적 실체는,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널리 보급돼 있는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직 체제를 나타낸다. **하보나** 에너지는 삼중적이며; 연방우주의 에너지_물질단위는, 한 에너지 형태가 음성 상태와 양성 상태로 존재하지만, 이중{二重} 에너지 전하를 내포한다. 중앙우주 창조계는 삼중{삼위일체}이며; 지방우주의 창조물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으로 인해서, (정확히) 이중이다.

하보나 물질은, 정확하게 1,000개의 기초 화학 원소 조직과, 일곱 형태를 갖는 **하보나** 에너지의 균형 잡힌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 기초 에너지들은 각각 일곱 국면의 자극{磁極}을 나타내는데, 그리하여 **하보나** 원주민은 49가지 서로 다른 감각 충동에 반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전히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우주 원주민은 특화된 49가지 감각 형태를 갖는다. 모론시아 감각은 70가지이고, 더 높은 영적 반작용 계층들은 70가지에서 210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다른 유형으로 반응한다.

중앙우주의 어떤 물리적 존재든지, **유란시아** **인**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세계들의 어떤 물리적 자극도, 너희의 조잡한 감각 기관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유란시아** 필사자가 **하보나**로 옮겨질 수 있다

ten thousand times higher than the inner circuit. The up-and-down diameter of the outer circuit is fifty thousand times that of the transverse diameter.

14:1.17 (154.1) The intervening space which exists between these two circuits of gravity bodies is *unique* in that nothing like it is to be found elsewhere in all the wide universe. This zone is characterized by enormous wave movements of an up-and-down nature and is permeated by tremendous energy activities of an unknown order.

14:1.18 (154.2) In our opinion, nothing like the dark gravity bodies of the central universe will characterize the future evolution of the outer space levels; we regard these alternate processions of stupendous gravity-balancing bodies as unique in the master universe.

2. CONSTITUTION OF HAVONA

14:2.1 (154.3) Spirit beings do not dwell in nebulous space; they do not inhabit ethereal worlds; they are domiciled on actual spheres of a material nature, worlds just as real as those on which mortals live. The Havona worlds are actual and literal, albeit their literal substance differs from the material organization of the plane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4:2.2 (154.4) The physical realities of Havona represent an order of energy organization radically different from any prevailing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space. Havona energies are threefold; superuniverse units of energy-matter contain a twofold energy charge, although one form of energy exists in negative and positive phases. The creation of the central universe is threefold (Trinity); the creation of a local universe (directly) is twofold, by a Creator Son and a Creative Spirit.

14:2.3 (154.5) The material of Havona consists of the organization of exactly one thousand basic chemical elements and the balanced function of the seven forms of Havona energy. Each of these basic energies manifests seven phases of excitation, so that the Havona natives respond to forty-nine differing sensation stimuli. In other words, viewed from a purely physical standpoint, the natives of the central universe possess forty-nine specialized forms of sensation. The morontia senses are seventy, and the higher spiritual orders of reaction response vary in different types of beings from seventy to two hundred and ten.

14:2.4 (154.6) None of the physical beings of the central universe would be visible to Urantians. Neither would any of the physical stimuli of those faraway worlds excite a reaction in your gross sense organs. If a Urantia mortal could be transported to Havona, he would there be deaf,

면, 그는 거기서 귀먹고, 앞을 보지 못하고, 모든 다른 감각 반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며; 모든 환경 자극과 그에 따른 모든 반응을 빼앗긴, 제한된 자아_의식 존재로서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창조물에는,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리적 현상과 영적 반응이 발생한다. 삼중 창조물의 기본 조직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된 우주들의 이중 구조 조직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모든 자연 법칙은, 진화하는 창조계의 이중_에너지 체계들과는 아주 다른 어떤 기초 위에서 조정된다. 중앙우주 전체는, 완전하고 균형 잡히게 통제하는 삼중 체계에 맞춰서 조직돼 있다. **낙원_하보나** 체계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공우주 실체와 모든 영적 힘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유지된다. **낙원**은, 물질 창조계를 완전무결하게 붙잡은 채, 이 중앙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을 완전하게 규제하고 유지하며; 전체를 에워싸는 영 점유의 일부로서, **영원한 아들은 하보나**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의 영적 신분을 가장 완전하게 지탱한다. **낙원**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되지 않으며, **낙원_하보나** 체계는 완전하게 창조된 독립집단이다.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인 영적 인력은, 중앙우주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정도로 활동적이다. 모든 영 가치와 영적 인격체는, **하나님**들이 거하시는 곳을 향해 안쪽으로 끊임없이 이끌린다. **하나님**을 향한 이 충동은 강렬하고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열정이 중앙우주에서 더 강한 이유는, 영 인력이 밖에 있는 우주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보나**에 도달한 그 존재들이 더 충분하게 영성화 돼있고,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_인력 흡인력을 갖는 항상_현존하는 행위에 더 많이 민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모든 지적 가치를 **낙원** 쪽으로 끌어당긴다. 중앙우주 전역에서 **무한한 영**의 정신 인력이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과 관계하면서 작용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신격**에 도달하기 위한, **낙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를 알기 위한, 상승한 혼들의 혼합된 충동을 이것들이 함께 구성한다.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다. 중앙우주의 통제와 균형 잡힌 안정성은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예견될 수 있지만, 정신 현상과 인격의 자유의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가 일어날 수 없다고 추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하보나**에서 태어난, 자유의지를 지닌 원주민 피조물이 **신격**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는 근거에 입각해서다. 영원성 내내, 이 숭고한 존재들은 **영원 항존자**들에게

blind, and utterly lacking in all other sense reactions; he could only function as a limited self-conscious being deprived of all environmental stimuli and all reactions thereto.

14:2.5 (154.7) There are numerous physical phenomena and spiritual reactions transpiring in the central creation which are unknown on worlds such as Urantia. The basic organization of a threefold creation is wholly unlike that of the twofold constitution of the created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2.6 (154.8) All natural law is co-ordinated on a basis entirely different than in the dual-energy systems of the evolving creations. The entire central universe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threefold system of perfect and symmetrical control. Throughout the whole Paradise-Havona system there is maintained a perfect balance between all cosmic realities and all spiritual forces. Paradise, with an absolute grasp of material creation, perfectly regulates and maintains the physical energies of this central universe; the Eternal Son, as a part of his all-embracing spirit grasp, most perfectly sustains the spiritual status of all who indwell Havona. On Paradise nothing is experimental, and the Paradise-Havona system is a unit of creative perfection.

14:2.7 (155.1) The universal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is amazingly active throughout the central universe. All spirit values and spiritual personalities are unceasingly drawn inward towards the abode of the Gods. This Godward urge is intense and inescapable. The ambition to attain God is stronger in the central universe, not because spirit gravity is stronger than in the outlying universes, but because those beings who have attained Havona are more fully spiritualized and hence more responsive to the ever-present action of the universal spirit-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14:2.8 (155.2) Likewise does the Infinite Spirit draw all intellectual values Paradiseward. Throughout the central universe the mind gravity of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in liaison with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and these together constitute the combined urge of the ascendant souls to find God, to attain Deity, to achieve Paradise, and to know the Father.

14:2.9 (155.3) Havona is a spiritually perfect and physically stable universe. The control and balanced stability of the central universe appear to be perfect. Everything physical or spiritual is perfectly predictable, but mind phenomena and personality volition are not. We do infer that sin can be reckoned as impossible of occurrence, but we do this on the ground that the native freewill creatures of Havona have never been guilty of transgressing the will of Deity. Through all eternity

일관되게 충성해 왔다. 또한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들어온 어떤 피조물도 죄를 나타낸 적이 없다. **하보나** 중앙우주에서 창조된, 또는 거기 들어오도록 허용된 어떤 집단의 인격체든지, 거기에 속하는 어떤 피조물도 과오를 범한 예가 전혀 없었다.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너무 완전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하보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오류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어떤 실수도 저질러진 적이 없으며; 어떤 상승한 혼도 미숙한 상태로 중앙우주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3. 하보나 세계들

정부에 관한 한, 중앙우주에는 아무 정부도 없다. **하보나**는 너무나 정교하게 완전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지적 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집회도 없으며; **하보나**는 오직 경영 방침만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참된 자체_정부라는 최고 이상{理想}만 목격될 수 있다.

그렇게 완전한 지성체들과 거의_완전한 지성체들 가운데에는 정부가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규제가 필요 없는데, 그들은 선천적으로 완전한 존재이고, 그들과 섞인 진화 피조물은 오래 전부터 연방우주 최고 법정의 정밀한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보나의 경영은,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과적이다. 그 경영은 대개 행성을 단위로 하고, 주재{駐在}하는 **영원 항존자**에게 귀속{歸屬}돼 있는데, 각 **하보나** 구체는 이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인격체 가운데 하나의 지시를 받는다. **영원 항존자**들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행정가다. 그들은 최고의 솜씨로 가르치고, 절대성에 가까운 지혜의 완전성으로 행성 자녀들을 감독한다.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는, **낙원**과 **하보나**에 귀속된 높은 인격체들에 대한 훈련 세계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진화하는 시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최종 검증 장소로 쓰인다. 피조물 상승이라는 **만유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외부 회로, 즉 일곱째 회로의 영접 세계들에 도착하며, 그들은 증가된 훈련과 확장된 체험을 겪은 후에,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그리고 회로에서 회로로, 마침내 **신격**들에 도달하여 **낙원**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안쪽을 향해 점진적으로 승진된다.

지금, 일곱 회로에 속하는 구체들이 그 모든 숭고한 영광 안에 유지되고 있더라도, 전체 행성 수용력 중에서 오직 1퍼센트만이, 필사자 상승이라는 **아버지**의 우주 계획을 추진하는 일에 활용된다. 이 막대한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의 1퍼센트 가

these supernal beings have been consistently loyal to the Eternals of Days. Neither has sin appeared in any creature who has entered Havona as a pilgrim. There has never been an instance of misconduct by any creature of any group of personalities ever created in, or admitted to, the central Havona universe. So perfect and so divine are the methods and means of selection in the universes of time that never in the records of Havona has an error occurred; no mistakes have ever been made; no ascendant soul has ever been prematurely admitted to the central universe.

3. THE HAVONA WORLDS

14:3.1 (155.4) Concerning the government of the central universe, there is none. Havona is so exquisitely perfect that no intellectual system of government is required. There are no regularly constituted courts, neither are there legislative assemblies; Havona requires only administrative direction. Here may be observed the height of the ideals of true self-government.

14:3.2 (155.5) There is no need of government among such perfect and near-perfect intelligences. They stand in no need of regulation, for they are beings of native perfection interspersed with evolutionary creatures who have long since passed the scrutiny of the supreme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s.

14:3.3 (155.6) The administration of Havona is not automatic, but it is marvelously perfect and divinely efficient. It is chiefly planetary and is vested in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each Havona sphere being directed by one of these Trinity-origin personalities. Eternals of Days are not creators, but they are perfect administrators. They teach with supreme skill and direct their planetary children with a perfection of wisdom bordering on absoluteness.

14:3.4 (156.1) The billion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constitute the training worlds of the high personalities native to Paradise and Havona and further serve as the final proving grounds for ascending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In the execution of the Universal Father's great plan of creature ascension the pilgrims of time are landed on the receiving worlds of the outer or seventh circuit, and subsequent to increased training and enlarged experience, they are progressively advanced inward, planet by planet and circle by circle, until they finally attain the Deities and achieve residence on Paradise.

14:3.5 (156.2) At present, although the spheres of the seven circuits are maintained in all their supernal glory, only about one per cent of all planetary capacity is utilized in the work of furthering the Father's universal plan of mortal ascension. About

운데 약 10분의 1은 **완결성취 단체**의 생애와 활동에만 제공돼 있는데, 이들은 **하보나** 세계에 중중 머물면서 사역하는 빛과 생명에 영원히 정착된 존재다. 고양된 이 존재들은 **낙원**에 개인 거주지를 갖는다.

하보나 구체들의 행성 구조는,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및 체계들의 구조와는 아주 다르다. 광 우주 전체 가운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런 거대한 구체들을 거주 세계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곳은 없다. 삼중세력 물리 구조물은,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의 평형 효과와 함께, 물리적 세력들을 그토록 완전히 균등하게 하고, 이 거대한 창조계의 다양한 이끌림을 그토록 절묘하게 평형시킬 수 있게 한다. 반인력(反引力)은, 물질 기능들의 조직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의 영적 활동에서도 또한 적용된다.

하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및 예술적 장식물과 마찬가지로, 구조물과 빛과 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훨씬 벗어난다. **하보나**에 대해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세계들에는 분명한 강과 호수들이 있다.

영적인 면에서,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우주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계층의 다양한 존재를 보호하는 목적에 안성맞춤이다.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활동이,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이뤄진다.

one tenth of one per cent of the area of these enormous worlds is dedicated to the life and activitie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beings eter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who often sojourn and minister on the Havona worlds. These exalted beings have their personal residences on Paradise.

14:3.6 (156.3) The planetary construction of the Havona spheres is entirely unlike that of the evolutionary worlds and systems of space. Nowhere else in all the grand universe is it convenient to utilize such enormous spheres as inhabited worlds. Triata physical constitution, coupled with the balancing effect of the immense dark gravity bodies, makes it possible so perfectly to equalize the physical forces and so exquisitely to balance the various attractions of this tremendous creation. Antigravity is also employ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functions and the spiritual activities of these enormous worlds.

14:3.7 (156.4) The architecture, lighting, and heating, as well as the biologic and artistic embellishment, of the Havona spheres, are quite beyond the greatest possible stretch of human imagination. You cannot be told much about Havona; to understand its beauty and grandeur you must see it. But there are real rivers and lakes on these perfect worlds.

14:3.8 (156.5) Spiritually these worlds are ideally appointed; they are fittingly adapted to their purpose of harboring the numerous orders of differing beings who function in the central universe. Manifold activities take place on these beautiful worlds which are far beyond human comprehension.

4. 중앙우주의 피조물

하보나 세계들에는 기본적인 일곱 가지 형태의 살아있는 물체 및 존재들이 있으며, 이 기본 형태 각각은 세 가지 다른 국면으로 존재한다. 이 세 국면 각각은 70개의 주요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각 주요 구획은 1,000개의 보조 구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하위구획들로 나뉘고, 이렇게 계속된다. 이 기본 생명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물질 집단.
2. 모론시아 집단.
3. 영적 집단.
4. 유한절대 집단.
5. 궁극 집단.
6. 상호절대 집단.
7. 절대 집단.

4.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14:4.1 (156.6) There are seven basic forms of living things and beings on the Havona worlds, and each of these basic forms exists in three distinct phases. Each of these three phases is divided into seventy major divisions, and each major division is composed of one thousand minor divisions, with yet other subdivisions, and so on. These basic life groups might be classified as:

14:4.2 (156.7) 1. Material.

14:4.3 (156.8) 2. Morontial.

14:4.4 (156.9) 3. Spiritual.

14:4.5 (156.10) 4. Absonite.

14:4.6 (156.11) 5. Ultimate.

14:4.7 (156.12) 6. Coabsolute.

14:4.8 (156.13) 7. Absolute.

하보나 세계들에서는, 쇠퇴와 죽음이 생명 주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우주에서 비교적 낮은 살아있는 물체들은 물질화의 변화를 겪는다. 그것들은 형태와 모습을 바꾸지만, 쇠퇴와 세포의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하보나 원주민은 모두 **낙원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그들에게는 피조물 부모가 없고, 번식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중앙우주의 이 시민, 즉 전혀 창조된 바 없는 존재들의 창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하보나** 창조에 관한 전체 이야기는, 필사적 사람이 납득하는 시간 또는 공간과는 관계없는 영원성이라는 사실을 시·공간에 적용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철학체계에 한 시작점을 용인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격체들조차, “시작”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낙원_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하보나 원주민은, 다른 계층의 영구 시민권자가 각자 태어난 장소에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우주의 10억 구체에 산다. 아들신분을 갖는 물질 계층이, 연방우주에서 10억 지역 체계의, 물질적, 지적, 및 영적 경륜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개념에서 볼 때, **하보나** 원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에서 살고 활동한다. “물질” 세계가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를 설명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아마 이 **하보나** 주민을 물질 피조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하보나 출생이며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 **하보나** 주민은, **낙원** 하강자(下降者) 및 연방우주 상승자(上昇者)를 여러 방법으로 돌보지만, 또한 중앙우주에서 독특하며, **낙원** 또는 연방우주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대적 의미를 갖는 삶을 살기도 한다.

진화 세계의 신앙 아들들의 경배가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족시키기에 기여하듯이, **하보나** 피조물이 드리는 고귀한 찬미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라는 완전한 이상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분투하듯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 그들의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고, **하보나** 주민은 신성한 아름다움에 즐거워하며, 한편 너희 모두는 생생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

하보나 주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운명과,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운명, 둘 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앙우주에 고유한 도착 피조물의 진보, 즉 **낙원**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연방우주를 통과하지도 않는 어떤 진보가 있다. **하보나**에서 더 높은 신분을 향한 이 진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4.4.9 (157.1) Decay and death are not a part of the cycle of life on the Havona world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lower living things undergo the transmutation of materialization. They do change form and manifestation, but they do not resolve by process of decay and cellular death.

14.4.10 (157.2) The Havona natives are all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without creature parents, and they are nonreproducing beings. We cannot portray the creation of these citizens of the central universe, beings who never were created. The entire story of the creation of Havona is an attempt to time-space an eternity fact which has no relation to time or space as mortal man comprehends them. But we must concede human philosophy a point of origin; even personalities far above the human level require a concept of “beginnings.” Nevertheless, the Paradise-Havona system is eternal.

14.4.11 (157.3) The natives of Havona live on the billion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in the same sense that other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dwell o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nativity. As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carries on th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economy of a billion local systems in a superuniverse, so, in a larger sense, do the Havona natives live and function on the billion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You might possibly regard these Havoners as material creatures in the sense that the word “material” could be expanded to describe the physical realities of the divine universe.

14.4.12 (157.4) There is a life that is native to Havona and possesses significance in and of itself. Havoners minister in many ways to Paradise descenders and to superuniverse ascenders, but they also live lives that are unique in the central universe and have relative meaning quite apart from either Paradise or the superuniverses.

14.4.13 (157.5) As the worship of the faith s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minist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s love, so the exalted adoration of the Havona creatures satiates the perfect ideals of divine beauty and truth. As mortal man strives to do the will of God, these beings of the central universe live to gratify the ideals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ir very nature they are the will of God. Man rejoices in the goodness of God, Havoners exult in the divine beauty, while you both enjoy the ministry of the liberty of living truth.

14.4.14 (157.6) Havoners have both optional present and future unrevealed destinies. And there is a progression of native creatures that is peculiar to the central universe, a progression that involves neither ascent to Paradise nor penetration of the superuniverses. This progression to higher Havona status may be suggested as follows:

1. 첫째에서 일곱째 회로까지 밖으로 나가는 체험적 진보.

2. 일곱째에서 첫째 회로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진보.

3. 회로_내{內} 진보--주어진 회로의 세계들 안에서의 진보.

하보나 원주민 외에, 중앙우주 거주자는 다양한 우주 집단을 위한--곧 그들 부류에게, 그리고 창조하는 동안 내내 그들 부류에게, 자문가, 지휘자, 및 선생이 되는 자들을 위한-- 수많은 부류의 원형{原型} 존재를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든지, 수많은 **하보나**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 사는 원형 피조물 중에서 어느 한 계층의 계통을 따라 형성된다. 심지어 시간세계의 필사자들도, 높은 곳에 있는 이 원형{原型} 구체 외부 회로들에 실존하는 피조물에 대한 목표와 이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며, 특별한 봉사 사명을 띠고 우주들 여기저기에 배정된다. 그리고 **하보나** 세계마다 도달 후보자들이 발견될 것인데, 이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도달한 존재이지만, **낙원** 거주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발전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존재다.

은혜롭고 영광스런 존재인 수많은 인격체가 **하보나** 세계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데, 이 인격체들은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知的} 및 영적 직무의 세무사함을 경영한다. 신성한 완전성에 속하는 이 세계에서, 그들은 이 방대한 창조물의 정상 운영에 고유한 일을 실행하고, 게다가, 우주의 어두운 세계에서 영광을 향해 올라온, 엄청난 숫자의 상승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돌보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완전성을 달성하도록 피조물을 상승시키는 기획과 어떤 면으로도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낙원_하보나** 체계에 본래부터 있는 수많은 집단의 존재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필사자 인종에게 제시된 인격체 분류표{分類表}에서 제외돼 있다. 초인적 존재들 중에서 오직 주요 집단과 너희의 생존 체험에 직접 관련되는 계층만 여기에 제시됐다.

하보나는 모든 국면의 지성 생명체 존재로 참만 돼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신성 실현이라는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최상의 의미, 궁극적 가치, 및 절대 실체라는 확장된 판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낮은 회로에서 높은 회로로 진보하려고 애쓴다.

14:4.15 (157.7) 1. Experiential progress outward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circuit.

14:4.16 (157.8) 2. Progress inward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circuit.

14:4.17 (157.9) 3. Intracircuit progress — progression within the worlds of a given circuit.

14:4.18 (157.10) In addition to the Havona natives, the inhabitants of the central universe embrace numerous classes of pattern beings for various universe groups — advisers, directors, and teachers of their kind and to their kind throughout creation. All beings in all universes are fashioned along the lines of some one order of pattern creature living on some one of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Even the mortals of time have their goal and ideals of creature existence on the outer circuits of these pattern spheres on high.

14:4.19 (157.11) Then there are those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and who are entitled to go and come, who are assigned here and there in the universes on missions of special service. And on every Havona world will be found the attainment candidates, those who have physically attained the central universe, but who have not yet achieved that spiritual development which will enable them to claim Paradise residence.

14:4.20 (158.1) The Infinite Spirit is represented on the Havona worlds by a host of personalities, beings of grace and glory, who administer the details of the intricate intellectual and spiritual affairs of the central universe. On these worlds of divine perfection they perform the work indigenous to the normal conduct of this vast creation and, in addition, carry on the manifold tasks of teaching, training, and ministering to the enormous numbers of ascendant creatures who have climbed to glory from the dark worlds of space.

14:4.21 (158.2) There are numerous groups of beings native to the Paradise-Havona system that are in no way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scension scheme of creature perfection attainment; therefore are they omitted from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s presented to the mortal races. Only the major groups of superhuman beings and those orders directly connected with your survival experience are herein presented.

14:4.22 (158.3) Havona teems with the life of all phases of intelligent beings, who there seek to advance from lower to higher circuits in their efforts to attain higher levels of divinity realization and enlarged appreciation of supreme meanings, ultimate values, and absolute reality.

5. 하보나에서 지내는 생애

5. LIFE IN HAVONA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물질 실존에 해당하는 첫 생애 동안, 짧고 집중적인 시험을 통과한다.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서, 그리고 체계, 성좌(星座), 및 지방우주를 거쳐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국면들을 거친다. 너희는 연방우주 훈련 세계들에서 참된 영 진보 단계들을 통과하고, **하보나**를 향한 마지막 과도기를 위해 준비된다.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너희의 달성은 지적이고 영적이며 체험적이다. 그리고 이런 각 회로에 속한 세계들 각각에서 성취해야 할 분명한 과제가 있다.

신성한 중앙우주 세계들에서 지내는 생애는 너무나 부요하고 충만해서, 너무나 완비되고 충분해서, 피조된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다. 이 영원한 창조물에 속하는 사회 및 경제 활동은, **유란시아** 같은 진화 세계에 사는 물질 피조물의 직업과는 아주 다르다. 심지어 **하보나** 사고(思考) 기법도 **유란시아**에서 생각하는 과정과 다르다.

중앙우주의 규칙은 적절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연스러우며; 운영 규정은 독단적이지 않다. **하보나**의 요구조건마다 정의의 근거와 응보의 규정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혼합된 이 두 요소는, **유란시아**에서 공정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어떤 것과 동일하다. **하보나**에 도착할 때, 너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방법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될 것이다.

지성 존재들은 중앙우주에 처음 도달할 때, 일곱째 **하보나** 회로의 안내(案内)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산다. 새로 도착한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자신의 연방우주 으뜸 영의 정체성을 납득하게 되면, 여섯째 궤도로 옮겨진다. (인간 정신 안에서 진보 궤도들이 명명돼 온 것은, 중앙우주에 있는 이런 배열에서 유래한다.) 상승자들이 **지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해 준비되면, 다섯째 회로로 옮겨지며; **무한한 영**에게 도달한 후에, 넷째 회로로 옮겨진다.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한 후에, 셋째 회로로 옮겨지며; **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한 후에, 둘째 회로 세계들에 머물기 위해 가는데, 거기서 **낙원** 무리와 더욱 친하게 된다. 첫째 **하보나** 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세계의 후보자들이 **낙원**의 봉사에 받아들여짐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피조물 상승 기간과 본성에 준해서, 그들은 점진적 영적 달성이 이뤄지는 내부 회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내부 회로에서 **낙원** 거주지를 향해 안쪽으로 진행하고, **완결성취 단체**에 받아들여진다.

너는 상승하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자신에게 할당된 회로의 세계들 사이에서

14:5.1 (158.4) On Urantia you pass through a short and intense test during your initial life of material existence. On the mansion worlds and up through your system, constellation, and local universe, you traverse the morontia phases of ascension. On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you pass through the true spirit stages of progression and are prepared for eventual transit to Havona.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your attainment is intellectual, spiritual, and experiential. And there is a definite task to be achieved on each of the worlds of each of these circuits.

14:5.2 (158.5) Life on the divine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is so rich and full, so complete and replete, that it wholly transcends the human concept of anything a created being could possibly experience.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is eternal creation are entirely dissimilar to the occupations of material creatures living on evolutionary worlds like Urantia. Even the technique of Havona thought is unlike the process of thinking on Urantia.

14:5.3 (158.6) The regulation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fittingly and inherently natural; the rules of conduct are not arbitrary. In every requirement of Havona there is disclosed the reason of righteousness and the rule of justice. And these two factors, combined, equal what on Urantia would be denominated *fairness*. When you arrive in Havona, you will naturally enjoy doing things the way they should be done.

14:5.4 (158.7) When intelligent beings first attain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received and domiciled on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Havona circuit. As the new arrivals progress spiritually, attain identity comprehension of their superuniverse Master Spirit, they are transferred to the sixth circle. (It is from these arrangements in the central universe that the circles of progress in the human mind have been designated.) After ascenders have attained a realization of Supremacy and are thereby prepared for the Deity adventure, they are taken to the fifth circuit; and after attaining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transferred to the fourth.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Son, they are removed to the third; and when they have recognized the Universal Father, they go to sojourn on the second circuit of worlds, where they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Paradise hosts. Arrival on the first circuit of Havona signifies the acceptance of the candidates of time into the service of Paradise. Indefinitely, according to the length and nature of the creature ascension, they will tarry on the inner circuit of progressive spiritual attainment. From this inner circuit the ascending pilgrims pass inward to Paradise residence and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4:5.5 (159.1) During your sojourn in Havona as a pilgrim of ascent, you will be allowed to visit freely

자유롭게 방문이 허용될 것이다. 또한 너는 전에 지나왔던 회로의 행성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고스랍의 보호를 받을 필요 없이, **하보나** 궤도에 머무는 자에게 가능하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성취된” 공간을 지나도록 스스로 채비할 수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에는 규정된 기법에 의존해야 하며; 순례자는 운반 최고스랍의 도움 없이는 **하보나**를 떠날 수 없고, 자신의 배정된 회로를 벗어나서 전진할 수 없다.

이 방대한 중앙 창조물에는 참신한 독창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기본 계층의 지성 존재 및 기타 생물체들의 근본 구성을 제외하면, **하보나** 세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은 각각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독자적인 창조물이며; 각 행성은 비길 데 없고 뛰어나며 완전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개체성은, 행성에 실존하는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측면의 모든 특색으로 확장된다. 10억 개의 완전한 이 구체들 각각은,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장식돼 왔다. 바로 이것이, 왜 그것들 가운데 어느 두 구체도 똑같지 않은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다.

네가 **하보나** 회로들 중에서 마지막을 거치고, **하보나** 세계들 중에서 마지막을 방문한 후에야 비로소, 모험이라는 강장제(強壯劑)와 호기심이라는 자극제가 너의 생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원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충동이, 그 선구자, 즉 시간세계의 모험이라는 매력을 대치할 것이다.

단조로움은 창조적 상상력이 미성숙함을 암시하고, 영적 재능을 겸한 지적 조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상승한 필사 존재들이 하늘의 이 세계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는 때까지, 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는 이미, 감정적, 지적, 사회적 성숙에 도달했다.

너희가 **하보나**에 있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진보할 때, 꿈도 꾸지 못했던 변화가 너희 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회로에서 한 행성으로부터 다른 행성으로 전진할 때,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탄할 것이다. 10억 개의 이 학습 세계는 각각 놀랄만한 진정한 대학이다. 경탄이 계속되는 동안, 이 회로들을 거치고 이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들의 체험은 끝없는 불가사의가 될 것이다. **하보나** 생애에서 단조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그리고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진화하는 인간적 본성에 내재돼 있는 특징인데-- 너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너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려고 있게 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은, 끝없이 모험하는 생애, 즉 영원한 탐험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게 했

among the worlds of the circuit of your assignment. You will also be permitted to go back to the planets of those circuits you have previously traversed. And all this is possible to those who sojourn on the circles of Havona without the necessity of being ensupernaphimed. The pilgrims of time are able to equip themselves to traverse “achieved” space but must depend on the ordained technique to negotiate “unachieved” space; a pilgrim cannot leave Havona nor go forward beyond his assigned circuit without the aid of a transport supernaphim.

14:5.6 (159.2) There is a refreshing originality about this vast central creation. Aside from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matter and the fundamental constitution of the basic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and other living things, there is nothing in common between the worlds of Havona. Every one of these planets is an original, unique, and exclusive creation; each planet is a matchless, superb, and perfect production. And this diversity of individuality extends to all features of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aspects of planetary existence. Each of these billion perfection spheres has been developed and embel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of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And this is just why no two of them are alike.

14:5.7 (159.3) Not until you traverse the last of the Havona circuits and visit the last of the Havona worlds, will the tonic of adventure and the stimulus of curiosity disappear from your career. And then will the urge, the forward impulse of eternity, replace its forerunner, the adventure lure of time.

14:5.8 (159.4) Monotony is indicative of immaturity of the creative imagination and inactivity of intellectual co-ordination with the spiritual endowment. By the time an ascendant mortal begins the exploration of these heavenly worlds, he has already attained emot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if not spiritual, maturity.

14:5.9 (159.5) Not only will you find undreamed-of changes confronting you as you advance from circuit to circuit in Havona, but your astonishment will be inexpressible as you progress from planet to planet within each circuit. Each of these billion study worlds is a veritable university of surprises. Continuing astonishment, unending wonder, is the experience of those who traverse these circuits and tour these gigantic spheres. Monotony is not a part of the Havona career.

14:5.10 (159.6) Love of adventure, curiosity, and dread of monotony — these traits inherent in evolving human nature — were not put there just to aggravate and annoy you during your short sojourn on earth, but rather to suggest to you that death is only the beginning of an endless career of adventure, an everlasting life of anticipation, an eternal voyage of discovery.

다.

호기심은--곧 조사하려는 기질, 탐험하려는 충동, 탐사에 대한 욕구는-- 진화 공간 피조물의 태생적이고 신성한 재능 가운데 한 부분이다. 자연스런 이 충동은, 너희를 좌절시키고 억압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런 야심적인 욕망은 너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자주 억압받을 수밖에 없고, 실망감을 자주 체험하겠지만, 앞으로 올 긴 시대들 동안 충분히 실현되고 영광스럽게 채워질 것이다.

6. 중앙우주의 목적

일곱으로_회로화된 **하보나**의 활동 범위는 엄청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 **하보나** 활동.

2. **낙원** 활동.

3. 상승자의_유한한 활동--**최상급_궁극자**의 진화하는 활동.

유한을 초월하는 많은 활동이 현 우주 시대에 **하보나**에서 일어나는데, 유한절대에 해당하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성, 그리고 정신 및 영 기능에 속하는 기타 국면들을 포함한다. 피조된 정신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중앙우주가 작동하듯이, 내게 계시되지 않은 여러 목적에 중앙우주가 이바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나는, 완전한 이 창조계가 일곱 계층의 우주 지성체의 수요를 어떻게 공급하고 만족시키기에 기여하는가를 서술하려고 애 쓸 것이다.

1. **만유의 아버지-제1 근원 및 중심. 아버지 하나님**은, 중앙 창조가 완성됨으로써, 부모로서 최상의 만족감을 획득하신다. 그는 거의_대등한 수준에서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체험을 누리신다. 완전한 **창조주**는, 완전한 피조물이 드리는 존숭{尊崇}을 신성하게 기뻐하신다.

하보나는 **아버지**께 최상으로 성취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무한히 팽창하려는 영원한 열망이 시_공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하보나**에서 완전성을 실현함이 보상한다.

아버지는 **하보나**가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보답하는 것을 즐기신다. 절묘하게 조화된 완전한 원형을, 모든 진화하는 우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神}의 정신을 만족시킨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기쁨으로 중앙우주를 바라보시는데, 중앙우주가 온갖 우주의 모든 인격체를 향한 영 실체의 훌륭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14:5.11 (160.1) Curiosity — the spirit of investigation, the urge of discovery, the drive of exploration — is a part of the inborn and divine endowment of evolutionary space creatures. These natural impulses were not given you merely to be frustrated and repressed. True, these ambitious urges must frequently be restrained during your short life on earth, disappointment must be often experienced, but they are to be fully realized and gloriously gratified during the long ages to come.

6. THE PURPOSE OF THE CENTRAL UNIVERSE

14:6.1 (160.2) The range of the activities of seven-circuited Havona is enormous. In general, they may be described as:

14:6.2 (160.3) 1. Havonal.

14:6.3 (160.4) 2. Paradisiacal.

14:6.4 (160.5) 3. Ascendant-finite — Supreme-Ultimate evolutionary.

14:6.5 (160.6) Many superfinite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Havona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nvolving untold diversities of absonite and other phases of mind and spirit func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central universe serves many purposes which are not revealed to me, as it functions in numerous way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created mind. Nevertheless, I will endeavor to depict how this perfect creation ministers to the needs and contributes to the satisfactions of seven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

14:6.6 (160.7) 1. *The Universal Father* — the First Source and Center. God the Father derives supreme parental satisfaction from the perfection of the central creation. He enjoys the experience of love satiety on near-equality levels. The perfect Creator is divinely pleased with the adoration of the perfect creature.

14:6.7 (160.8) Havona affords the Father supreme achievement gratification. The perfection realization in Havona compensates for the time-space delay of the eternal urge of infinite expansion.

14:6.8 (160.9) The Father enjoys the Havona reciprocation of the divine beauty. It satisfies the divine mind to afford a perfect pattern of exquisite harmony for all evolving universes.

14:6.9 (160.10) Our Father beholds the central universe with perfect pleasure because it is a worthy revelation of spirit reality to all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우주들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차후에 이어지는 모든 우주 팽창을 위한 영원한 동력 핵으로서의 **하보나**와 **낙원**에 대해, 호의적 관심을 가지신다.

영원한 **아버지**는, 시간세계의 상승 후보자들, 즉 **창조주_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도달하는, 공간에서 온 필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가치 있고 매력적인 목표로서, **하보나** 창조계를 한없이 만족스럽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격**과 신성한 가족의 영원한 고향으로서 **낙원_하보나** 우주를 기뻐하신다.

2. **영원한 아들--제2 근원 및 중심**. 신성한 가족--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공동경영이 효과적인 것을, 웅장한 중앙 창조계가 **영원한 아들**에게 영원히 증명한다. 중앙 창조계는 **만유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및 물질적 근거다.

하보나는, 계속 팽창하는 영 권능의 실현을 위한 거의 무제한의 기초를 **영원한 아들**에게 제공한다. **영원한 아들**이 자신의 동역하는 **낙원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 중여 사역의 영성과 기법을 안전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장을, 중앙우주가 제공했다.

하보나는, **영원한 아들**이 온갖 우주를 영_인력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실체의 기초다. 이 우주는 **아들**에게 영적 재생산이라는 부모로서의 감망을 만족시켜준다.

하보나 세계와 거기 있는 완전한 거주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최초이자 영원토록 최종적인 예증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보완자인 **아들**의 의식(意識)이 완전하게 채워진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사이의 대등한 우애(友愛) 교환이 실현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리하여 각자 무한한 인격체임을 영구히 증명하게 만든다.

3. **무한한 영--제3 근원 및 중심**. **무한한 영**이, **공동 행위자**, 즉 통합된 **아버지_아들**의 무한한 대행자가 됨을, **하보나** 우주가 증명한다. **무한한 영**은, **하보나**에서 창조적 활기로서 작용하는 통합된 만족감을 얻는 한편, 신성한 이 성취와 함께 절대 공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무한한 영은, **하보나**에서 자신이 잠재적 자비사역자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경기장을 설립했다. **영**은, 진화 우주들에서 보살피는 모험을 위해 완전한 이 창조물 안에서 예행연습을 했다.

14:6.10 (160.11) The God of universes has favorable regard for Havona and Paradise as the eternal power nucleus for all subsequent universe expansion in time and space.

14:6.11 (160.12) The eternal Father views with never-ending satisfaction the Havona creation as the worthy and alluring goal for the ascension candidates of time, his mortal grandchildren of space achieving their Creator-Father's eternal home. And God takes pleasure in the Paradise-Havona universe as the eternal home of Deity and the divine family.

14:6.12 (160.13) 2. *The Eternal Son* —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o the Eternal Son the superb central creation affords eternal proof of the partnership effectiveness of the divine family — Father, Son, and Spirit. It is the spiritual and material basis for absolute confidence in the Universal Father.

14:6.13 (160.14) Havona affords the Eternal Son an almost unlimited base for the ever-expanding realization of spirit power. The central universe afforded the Eternal Son the arena wherein he could safely and securely demonstrate the spirit and technique of the bestowal ministry for the instruction of his associate Paradise Sons.

14:6.14 (161.1) Havona is the reality foundation for the Eternal Son's spirit-gravity contro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universe affords the Son the gratification of parental craving, spiritual reproduction.

14:6.15 (161.2) The Havona worlds and their perfect inhabitants are the first and the eternally final demonstration that the Son is the Word of the Father. Thereby is the consciousness of the Son as an infinite complement of the Father perfectly gratified.

14:6.16 (161.3) And this universe affords the opportunity for the realization of reciprocation of equality fraternity between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is constitutes the everlasting proof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each.

14:6.17 (161.4) 3. *The Infinite Spirit* —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Havona universe affords the Infinite Spirit proof of being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representative of the unified Father-Son. In Havona the Infinite Spirit derives the combined satisfaction of functioning as a creative activity while enjoying the satisfaction of absolute coexistence with this divine achievement.

14:6.18 (161.5) In Havona the Infinite Spirit found an arena wherein he could demonstrate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serve as a potential mercy minister. In this perfect creation the Spirit rehearsed for the adventure of ministry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완전한 이 창조물은, 신성한 두 부모와 함께 우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곧 동료 **창조주** 자손으로서 우주를 경영하는-- 기회를 **무한한 영**에게 제공했고, 그리하여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영** 동료로서, 지방우주의 공동 경영을 위해 준비했다.

하보나 세계들은, 시공우주 정신 창조자들의, 그리고 실존하는 모든 피조 정신에 대한 사역자들의, 정신 실험실이다. 정신은, 각 **하보나** 세계마다 다르며, 모든 영적 및 물질적 피조 지능을 위한 원형{原型}으로서 이바지한다.

이 완전한 세계들은, **낙원** 사회로 가게 돼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정신 대학원이다. 이 세계들은, 신중하고 충고하는 인격체들에 대한 정신 사역의 기법을 **영**이 시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보나는, **무한한 영**이 공간의 우주들에서 폭넓고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보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신 사역자**에게 완전한 고향이자 휴식처다.

4. **지존하신 분**--체험적 **신격**이 진화로 통합되신 분. **하보나** 창조물은, **지존하신 분**이 영적 실체{實體}임을 영원히 완전하게 증명한다. 이 완전한 창조물은, 체험적인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유한하게 반영된 **낙원 신격**들의 권능_인격 합성이 시작되기 이전의, **지존자 하나님**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靈} 본성을 계시{啓示}한 것이다.

하보나에서, **전능자**의 동력 잠재력이 **지존자**의 영적 본성과 통합돼 있다. 이 중앙 창조물은, **지존자**가 영원한_미래에 통일되는 것을 나타내는 예증이다.

하보나는 **지존자**의 잠재적 보편성의 완전한 원형{原型}이다. 이 우주는 **지존자**의 미래 완전성에 대한 완벽한 묘사{描寫}이며, **궁극자**의 잠재력에 대한 암시{暗示}다.

하보나는 최상으로 완전하게 자기를_통제하는, 의지를 지닌 살아있는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최종의 영 가치;궁극적으로 영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최종의 정신;무제한 잠재력을 가진 지성의 최종 실체 및 통일 등을 나타낸다.

5. **동격 창조주 아들**들. **하보나**는 **낙원 미가엘**들이 우주 창조물 안에서 연속되는 모험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 훈련장이다. 이 신성하고 완전한 창조물은, 모든 **창조주 아들**을 위한 원형{原型}이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우주를 완전성의 이 **낙원_하보나** 수준에 결국 도달하도록 만들려고 애쓴다.

14:6.19 (161.6) This perfect creation afforded the Infinite Spirit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universe administration with both divine parents — to administer a universe as associate-Creator offspring, thereby preparing for the joint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s as the Creative Spirit associates of the Creator Sons.

14:6.20 (161.7) The Havona worlds are the mind laboratory of the creators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isters to every creature mind in existence. Mind is different on each Havona world and serves as the pattern for all spiritual and material creature intellects.

14:6.21 (161.8) These perfect worlds are the mind graduate schools for all beings destined for Paradise society. They afforded the Spirit abundant opportunity to test out the technique of mind ministry on safe and advisory personalities.

14:6.22 (161.9) Havona is a compensation to the Infinite Spirit for his widespread and unselfish work in the universes of space. Havona is the perfect home and retreat for the untiring Mind Minister of time and space.

14:6.23 (161.10) 4. *The Supreme Being* — the evolutionary unification of experiential Deity. The Havona creation is the eternal and perfect proof of the spiritual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This perfect creation is a revelation of the perfect and symmetrical spirit nature of God the Supreme before the beginnings of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finite reflections of the Paradise Deities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6.24 (161.11) In Havona the power potentials of the Almighty are unified with the spiritual nature of the Supreme. This central creation is an exemplification of the future-eternal unity of the Supreme.

14:6.25 (161.12) Havona is a perfect pattern of the universality potential of the Supreme. This universe is a finished portrayal of the future perfection of the Supreme and is suggestive of the potential of the Ultimate.

14:6.26 (162.1) Havona exhibits finality of spirit values existing as living will creatures of supreme and perfect self-control; mind existing as ultimately equivalent to spirit; reality and unity of intelligence with an unlimited potential.

14:6.27 (162.2) 5. *The Co-ordinate Creator Sons.* Havona is the educational training ground where the Paradise Michaels are prepared for their subsequent adventures in universe creation. This divine and perfect creation is a pattern for every Creator Son. He strives to make his own universe eventually attain to these Paradise-Havona levels of perfection.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필사 자녀와 영 존재들을 위한 인격체_원형의 발전 가능성으로서, **하보나** 피조물을 활용한다. **미가엘** 및 다른 **낙원 아들**들은, **낙원**과 **하보나**를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으로 간주한다.

창조주 아들들은, 중앙 창조물이 자신의 지방우주를 안정시키고 통합하는, 필수적인 우주 전면통제의 실제 근원임을 안다. **지존자**와 **궁극자**의 항상_현존{現存}하는 영향력이 **하보나**에 직접 존재함을, 그들은 안다.

하보나와 **낙원**은 **미가엘 아들**의 창조 능력의 근원이다. 우주 창조에서 그와 협동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거주한다. **우주 어머니 영**들, 즉 지방우주 공동창조자들이 **낙원**에서 온다.

낙원 아들들은 중앙 창조계를 자신의 신성한 부모의 고향으로--곧 그들의 고향으로-- 간주한다. 이곳은 그들이 때때로 돌아가기를 즐기는 곳이다.

6. **보살피는 동격 딸**들. 지방우주 공동_창조자인 **우주 어머니 영**들은, **회로 영**들과 긴밀하게 연합하면서, **하보나** 세계들에서 자신의 인격이전 {人格以前} 훈련을 확보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지방우주들의 **영 딸**들이 **낙원 아들**들과 협동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훈련됐는데, 그동안 내내 **아버지** 뜻에 종속된다.

하보나 세계에서 **영**과 **영의 딸**들은, 영적 및 물질적 지성체로 구성된, 자신의 모든 집단을 위한 정신 원형을 발견하며, 이 중앙우주는, 연합된 **창조주 아들**과 함께 **우주 어머니 영**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피조물들이 언젠가 가야할 종착점이다.

우주 어머니 창조주는, **낙원**과 **하보나**를 자신이 기원된 장소 및 **무한한 어머니 영**의 고향, 즉 **무한한 정신**의 인격이 현존하는 거주지로 간주한다.

또한 창조자신분의 개인적인 특권이 이 중앙우주로부터 증여됐는데, **신성한 우주 사역자**는, 의지를 지닌 살아있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창조주 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특권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어머니 영**의 이 **딸 영**들은, 자신의 **낙원** 고향에 그렇게 항상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보나**에서 **지존하신 분**과 연합된, 그리고 **낙원**에서 **위엄자**{威嚴者} 안에 인격화 된, 우주의 반사성 현상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

7. 상승하는 생애를 사는 진화 필사자들. 하보

14:6.28 (162.3) A Creator Son uses the creatures of Havona as personality-pattern possibilities for his own mortal children and spirit beings. The Michael and other Paradise Sons view Paradise and Havona as the divine destiny of the children of time.

14:6.29 (162.4) The Creator Sons know that the central creation is the real source of that indispensable universe overcontrol which stabilizes and unifies their local universes. They know that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ver-present influence of the Supreme and of the Ultimate is in Havona.

14:6.30 (162.5) Havona and Paradise are the source of a Michael Son's creative power. Here dwell the beings who co-operate with him in universe creation. From Paradise come the Universe Mother Spirits, the cocreators of local universes.

14:6.31 (162.6) The Paradise Sons regard the central creation as the home of their divine parents — their home. It is the place they enjoy returning to ever and anon.

14:6.32 (162.7) 6. *The Co-ordinate Ministering Daughters.* The Universe Mother Spirits, cocreators of the local universes, secure their prepersonal training on the worlds of Havona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Spirits of the Circuit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Spirit Daughters of the local universes were duly trained in the methods of co-operation with the Sons of Paradise,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14:6.33 (162.8) On the worlds of Havona the Spirit and the Daughters of the Spirit find the mind patterns for all their groups of spiritual and material intelligences, and this central universe is the sometime destiny of those creatures which a Universe Mother Spirit jointly sponsors with an associated Creator Son.

14:6.34 (162.9) The Universe Mother Creator remembers Paradise and Havona as the place of her origin and the home of the Infinite Mother Spirit, the abode of the personality presence of the Infinite Mind.

14:6.35 (162.10) From this central universe also came the bestowal of the personal prerogatives of creatorship which a Universe Divine Minister employs as complementary to a Creator Son in the work of creating living will creatures.

14:6.36 (162.11) And lastly, since these Daughter Spirits of the Infinite Mother Spirit will not likely ever return to their Paradise home, they derive great satisfaction from the universal reflectivity phenomenon associated with the Supreme Being in Havona and personalized in Majeston on Paradise.

14:6.37 (162.12) 7.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he*

나는, 시간세계의 창조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필사자 연합체의 모든 초월_인간 인격체의 고향이며, 모든 필사자 유형의 원형 인격체의 고향이다.

이 세계들은, 인식 가능한 가장 높은 실체 수준에서 참된 영 가치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적 충동을 자극한다. **하보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 이전{以前}에 도달할 훈련 목표다. 필사자는 **낙원** 이전의 **신격**--곧 **지존하신 분**--을 여기서 만난다. **하보나**는,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낙원**과 **하나님**께 도달하는 입구로서 존재한다.

낙원은 완결성취자들의 고향이고, **하보나**는 그들의 작업장 및 놀이터다. 그리고 **하나님**을_아는 모든 필사자는 완결성취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중앙우주는 사람의 확립된 숙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험하는 체험에서 미지의 우주 모험을 하려고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완결성취자들의 영원한 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유한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공간 순례자들이 목격할 수 있는 미래 우주 시대에도, **하보나**는 유한절대 의미를 갖고 틀림없이 계속 작동할 것이다. **하보나**는 유한절대 존재를 위한 훈련 우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가 외부 공간의 초등 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중간 학교로서 역할하고 있을 때, **하보나**는 아마도 마무리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영원한 **하보나**의 잠재력은 정말로 제한돼 있지 않으며, 창조된 존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유형들을 위한 체험 훈련 학교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영원한 수용력을 중앙우주가 갖고 있다는 견해를, 우리는 지지하고 싶어 한다.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받은, 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Ascending Career. Havona is the home of the pattern personality of every mortal type and the home of all superhuman personalities of mortal association who are not native to the creations of time.

14:6.38 (162.13) These worlds provide the stimulus of all human impulses towards the attainment of true spirit values on the highest conceivable reality levels. Havona is the pre-Paradise training goal of every ascending mortal. Here mortals attain pre-Paradise Deity — the Supreme Being. Havona stands before every will creature as the portal to Paradise and God attainment.

14:6.39 (163.1) Paradise is the home, and Havona the workshop and playground, of the finaliters. And every God-knowing mortal craves to be a finaliter.

14:6.40 (163.1) The central universe is not only man's established destiny, but it is also the starting place of the eternal career of the finaliters as they shall sometime be started out on the undisclosed and universal adventure in the experience of exploring the inf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14:6.41 (163.1) Havona will unquestionably continue to function with absonite significance even in future universe ages which may witness space pilgrims attempting to find God on superfinite levels. Havona has capacity to serve as a training universe for absonite beings. It will probably be the finishing school whe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functioning as the intermediate school for the graduates of the primary schools of outer space. And we incline to the opinion that the potentials of eternal Havona are really unlimited, that the central universe has eternal capacity to serve as an experiential training universe for all past, present, or future types of created beings.

14:6.42 (163.1)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15편. 일곱 연방우주

⇨ 014

유랜시아 책

016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5편
일곱 연방우주

섹션

소개

1. 연방우주 공간 층
2. 연방우주의 조직
3. 오르본톤 연방우주
4. 성운--우주들의 조상
5. 천체의 기원
6. 공간의 구체
7. 건축양식 구체
8. 에너지 통제와 규제
9. 연방우주 회로
10. 연방우주 통치자
11. 심의회
12. 최고 재판소
13. 구역 정부
14. 일곱 연방우주의 목적

소개

만유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관련되는 한, 우주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아버지**는 인격체들과 관계하시며; 인격체들의 **아버지**시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창조자의 동반자로서-- 관련되는 한, 우주들은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적 영**들의 공동 통치 아래서 국지적이고 개별적이다. **낙원 삼위일체**가 관련되는 한, **하보나** 외부에는 오직 일곱 인간거주 우주, 즉 **하보나** 이후{以後}의 첫 공간 층{層} 궤도를 관할하는, 일곱 연방우주가 존재한다. **일곱 으뜸 영**은 자신의 영향력을 중앙 **섬**으로부터 방출하며, 그리하여 방대한 창조물을 하나의 거대한 바퀴로, 영원한 **낙원 섬**을 중심축으로, **일곱 으뜸 영**의 방사상{放射狀} 배열을 일곱 바퀴살로, 광우주의 외부 지역들을 테두리로 간주한다.

PAPER 15
THE SEVEN SUPER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2.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s
3.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4. Nebulae — The Ancestors of Universes
5. The Origin of Space Bodies
6. The Spheres of Space
7. The Architectural Spheres
8. Energy Control and Regulation
9.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10.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11. The Deliberative Assembly
12. The Supreme Tribunals
13. The Sector Governments
14. Purpos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NTRODUCTION

15:0.1 (164.1) AS FAR as the Universal Father is concerned — as a Father — the universes are virtually nonexistent; he deals with personalities; he is the Father of personalities. As far as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concerned — as creator partners — the universes are localized and individual under the joint rule of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As far as the Paradise Trinity is concerned, outside Havona there are just seven inhabited universes, the seven superuniverses which hold jurisdiction over the circle of the first post-Havona space level. The Seven Master Spirits radiate their influence out from the central Isle, thus constituting the vast creation one gigantic wheel, the hub being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seven spokes the radi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rim the

우주의 창조가 물질화하던 초기에, 연방우주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칠중{七重} 기획이 공식화됐다. **하보나** 이후 첫 창조물은 거대한 일곱 부분으로 나뉘었고, 이 연방우주 정부의 본부 세계들이 설계되고 건축됐다. 현재의 경영 기획은 거의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 일곱 연방우주 통치자들을 마땅히 **태고 항존자**라고 부른다.

연방우주들에 관한 방대한 주요 지식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하지만, 물리적 및 영적 힘들에 대한 지성 통제 기법이 이 영역에서 두루 작동하며, 우주의 인력{引力} 현존들이 웅대한 능력과 완전한 일치 속에서 작용한다. 연방우주 영토의 물리적 구성과 물질 조직에 대한 적절한 관념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의 영적{靈적} 정부를 위해, 그리고 이 일곱 연방우주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무수한 인간거주 행성에 거하는 의지{意志} 피조물의 지적 진보를 위해 제공된 놀라운 조직의 의미를 너희가 파악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연방우주 공간 층

너희의 짧은 년{年} 단위를 기준으로, 100만 년 또는 10억 년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든 실용적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유란시아** 및 **유란시아**가 소속된 우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긴 미지의 몰입{沒入}에 해당하는 모험을 체험하고 있지만; **우버사**의 기록에 따르면, 더 오래 관찰한 대로, 우리가 속한 계층의 더 확장된 체험과 계산에 조화되도록, 그리고 이 발견 및 다른 발견들에 기초해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우리는 우주들이,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우주 주변의 장엄한 모습 속에서 회전하면서, 질서 있고 잘 예측되고 완전하게 통제된 행렬 속에 들어 있음을 안다.

대단한 타원, 즉 거대하고 길게 늘어난 궤도를 일곱 연방우주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 전부터 발견했다. 너희의 태양계를 비롯해서, 한때의 다른 세계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오지{奧地}의 공간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다. 너희 체계가 속한 지방우주는, 중앙우주를 도는 거대한 진폭 주변에서, 분명하고 잘 알려진 반시계방향 진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 시공우주 경로는 잘 계획돼 있고, 너희의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궤도가 **유란시아** 천문학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우주 별 관찰자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

outer regions of the grand universe.

15.0.2 (164.2) Early in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iversal creation the sevenfold scheme of the superunivers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was formulated. The first post-Havona creation was divided into seven stupendous segments, and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se superuniverse governments were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present scheme of administration has existed from near eternity, and the rulers of these seven superuniverses are rightly called Ancients of Days.

15.0.3 (164.3) Of the vast body of knowledge concerning the superuniverses, I can hope to tell you little, but there is operative throughout these realms a technique of intelligent control for both physical and spiritual forces, and the universal gravity presences there function in majestic power and perfect harmony. It is important first to gain an adequate idea of the physical constitution and material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 domains, for then you will be the better prepared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marvelous organization provided for their spiritual government and for the intellectual advancement of the will creatures who dwell on the myriads of inhabited planets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se seven superuniverses.

1.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15.1.1 (164.4) Within the limited range of the records, observations, and memories of the generations of a million or a billion of your short year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Urantia and the universe to which it belongs are experiencing the adventure of one long and uncharted plunge into new space; bu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Uversa, in accordance with older observations, in harmony with the more extensive experience and calculations of our order, and as a result of conclusions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we know that the universes are engaged in an orderly, well-understood, and perfectly controlled processional, swinging in majestic grandeur around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his residential universe.

15.1.2 (165.1) We have long since discovered that the seven superuniverses traverse a great ellipse, a gigantic and elongated circle. Your solar system and other worlds of time are not plunging headlong, without chart and compass, into unmapped space. The local universe to which your system belongs is pursuing a definite and well-understood counterclockwise course around the vast swing that encircles the central universe. This cosmic path is well charted and is just as thoroughly known to the superuniverse star observers as the orbits of the planets constituting your solar system are known to Urantia

유란시아는 온전하게 조직되지 않은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너희의 지방우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수많은 물리 창조계에 바로 근접해 있다. 너희는 최근에 조성된 우주들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미지의 공간 속으로 격렬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지역 속으로 모르는 채 날아가고 있지도 않다. 너희는 연방우주 공간 층에서, 예정되고 질서 있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너희의 행성 체계 또는 그보다 앞선 체계들이 여러 시대 전에 지나갔던 바로 그 공간을, 너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으며, 먼 훗날 언젠가 너희 체계 또는 그것을 따라오는 체계들이, 지금 너희가 매우 신속하게 돌진해 지나가는 곳과 동일한 공간을,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1_번 연방우주는, **위대한 근원 및 중심의 낙원** 거주지 및 **하보나** 중앙우주에 대략 반대쪽으로, 동쪽 방향에서, 거의 정북{正北}으로 돌고 있다. 이 지점은, 서쪽에서 그와 대칭되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시간세계의 구체들이 영원한 **섬**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2_번 연방우주는 북쪽에 있고, 서쪽을 향해 돌 준비를 하며, 한편 3_번은 현재 거대한 공간 경로의 가장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몰입{沒入}하도록 이끄는 만곡{彎曲}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다. 4_번은 비교적 남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데, 앞선 부분은 지금 **위대한 중심**들 반대편으로 접근하고 있다. 5_번은 **최고 중심** 반대 지점을 거의 떠나는 동시에, 동쪽으로 회전하기 직전에 똑바로 남쪽 진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6_번은 남쪽 곡면, 즉 너희 연방우주가 거의 다 지나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바돈이라는 너희 지방우주는, 일곱째 연방우주인 **오르본톤**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1_번과 6_번 연방우주 사이에서 회전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 바로는) 얼마 전에 연방우주 공간 층 남동쪽 곡면을 돌았다. 오늘날, **유란시아**가 소속된 태양계는, 남쪽 곡면 주변을 수십억 년 일주해서 지나갔고, 그리하여 너희는 방금 남동쪽 곡면을 지나갔으며, 비교적 똑바르고 긴 북쪽 경로를 통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긴 시대 동안, **오르본톤**은 직선에 가까운 북쪽 방향의 이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

유란시아는 너희 지방우주 경계지역 쪽으로 상당히 나가있는 체계에 속해 있으며; 너희 지방우주는 현재 **오르본톤**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다. 너희 너머에 다른 것들이 계속 있지만, 너희는 **위대한 근원 및 중심**에 비교적 근접한 거대한 원 주변을 도는 물리 체계들로부터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astronomers.

15.1.3 (165.2) Urantia is situated in a local universe and a superuniverse not fully organized, and your local universe is in immediate proximity to numerous partially completed physical creations. You belong to one of the relatively recent universes. But you are not, today, plunging on wildly into uncharted space nor swinging out blindly into unknown regions. You are following the orderly and predetermined path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You are now passing through the very same space that your planetary system, or its predecessors, traversed ages ago; and some day in the remote future your system, or its successors, will again traverse the identical space through which you are now so swiftly plunging.

15.1.4 (165.3) In this age and as direction is regarded on Urantia, superuniverse number one swings almost due north, approximately opposite, in an easterly direction, to the Paradise residence of the Great Sources and Centers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This position, with the corresponding one to the west, represents the nearest physical approach of the spheres of time to the eternal Isle. Superuniverse number two is in the north, preparing for the westward swing, while number three now holds the northernmost segment of the great space path, having already turned into the bend leading to the southerly plunge. Number four is on the comparatively straightaway southerly flight, the advance regions now approaching opposition to the Great Centers. Number five has about left its position opposite the Center of Centers while continuing on the direct southerly course just preceding the eastward swing; number six occupies most of the southern curve, the segment from which your superuniverse has nearly passed.

15.1.5 (165.4) Your local universe of Nebadon belongs to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which swings on between superuniverses one and six, having not long since (as we reckon time) turned the southeastern bend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Today, the solar system to which Urantia belongs is a few billion years past the swing around the southern curvature so that you are just now advancing beyond the southeastern bend and are moving swiftly through the long and comparatively straightaway northern path. For untold ages Orvonton will pursue this almost direct northerly course.

15.1.6 (165.5) Urantia belongs to a system which is well out towards the borderland of your local universe; and your local universe is at present traversing the periphery of Orvonton. Beyond you there are still others, but you are far removed in space from those physical systems which swing around the great circle in comparative proximity to

the Great Source and Center.

2. 연방우주의 조직

오직 **만유의 아버지**만이, 공간에서 인간거주 세계의 위치와 실제 숫자를 아시며; 이들 모두를 이름과 번호로 부르신다. 나는 오직 인간거주 행성 또는 거주 가능한 행성의 대략적인 숫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성 생명체에게 합당한 세계를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갖는 지방우주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계획된 모든 지방우주가 다 조직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은, 다만 물질 창조가 얼마나 광대한지 짐작하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광우주에는 일곱 연방우주가 있고,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 **체계**. 약 1,000개의 인간거주 세계 또는 거주 가능한 세계로 구성되는 연방정부의 기초 단위. 떠오르는 항성, 차가운 세계, 뜨거운 항성에 너무 근접된 행성, 그리고 피조물 거주지로 적당치 않은 다른 구체는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적합한 1,000개의 이 세계를 체계라고 부르지만, 비교적 젊은 체계의 경우에는, 이 세계들 중에서 비교적 작은 숫자에만 생명체가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각 인간거주 행성마다 한 명의 **행성 왕자**가 관장하고, 각 지역 체계마다 한 개의 건축양식 구체를 그 본부로 소유하며, 한 **체계 주권자**가 통치한다.

2. **성좌**(星座). 100개의 체계가(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약 10만 개의 행성이) 한 성좌를 구성한다. 각 성좌마다 건축양식 본부 구체가 있고, 세 명의 **보론다덱 아들**, 즉 **지고자**들이 관장한다. 또한 각 성좌마다 관찰하는 한 명의 **충실**(忠實) **항존자**, 즉 **낙원 삼위일체**의 대사가 있다.

3. **지방우주**. 100개의 성좌가(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약 1,000만 개의 행성이) 한 지방우주를 구성한다. 각 지방우주마다 하나의 장엄한 건축양식 본부 세계가 있고, **미가엘** 계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동격 **창조주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다스린다. 각 우주마다 한 명의 **합동 항존자**, 즉 **낙원 삼위일체**의 대리자가 현존하는 복을 누린다.

4. **소구역**. 100개의 지방우주가(약 10억 개의 인간거주 행성이) 연방우주 정부의 한 소구역을 구성하며; 소구역에는 하나의 놀라운 본부 세계가 있고, 그 통치자, 즉 **최근 항존자**들이 소구역의 직무를 거기서 집행한다. 각 소구역 본부에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있다.

2.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S

15:2.1 (165.6) Only the Universal Father knows the location and actual number of inhabited worlds in space; he calls them all by name and number. I can give only the approximate number of inhabited or inhabitable planets, for some local universes have more worlds suitable for intelligent life than others. Nor have all projected local universes been organized. Therefore the estimates which I offer are solely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some idea of the immensity of the material creation.

15:2.2 (166.1) There are seven superuniverses in the grand universe, and they are constituted approximately as follows:

15:2.3 (166.2) 1. *The System*. The basic unit of the supergovernment consists of about one thousand inhabited or inhabitable worlds. Blazing suns, cold worlds, planets too near the hot suns, and other spheres not suitable for creature habitation are not included in this group. These one thousand worlds adapted to support life are called a system, but in the younger systems only a comparatively small number of these worlds may be inhabited. Each inhabited planet is presided over by a Planetary Prince, and each local system has an architectural sphere as its headquarters and is ruled by a System Sovereign.

15:2.4 (166.3) 2. *The Constellation*. One hundred systems (about 100,000 inhabitable planets) make up a constellation. Each constellation has an architectural headquarters sphere and is presided over by three Vorondadek Sons, the Most Highs. Each constellation also has a Faithful of Days in observation, an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15:2.5 (166.4) 3. *The Local Universe*. One hundred constellations (about 1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local universe. Each local universe has a magnificent architectural headquarters world and is ruled by one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of God of the order of Michael. Each universe is blessed by the presence of a Union of Days, a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15:2.6 (166.5) 4. *The Minor Sector*. One hundred local universes (about 1,00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min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it has a wonderful headquarters world, wherefrom its rulers, the Recents of Days, administer the affairs of the minor sector. There are three Recent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on each minor sector headquarters.

5. **대구역**. 100개의 소구역이(약 1,000억 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하나의 대구역을 이룬다. 각 대구역마다 하나의 훌륭한 본부가 마련돼 있고, 세 명의 **완성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관장한다.

6. **연방우주**. 10개의 대구역이(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약 1조 개의 행성이) 하나의 연방우주를 구성한다. 각 연방우주마다 하나의 거대하고 영광스런 본부 세계가 있고,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다스린다.

7. **광우주**. 일곱 연방우주가 현재 조직돼있는 광우주를 이루는데,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약 7조 개의 세계 이외에, 건축양식 구체들 및 **하보나**에 속하는 10억 개의 거주된 구체로 구성된다. **낙원**으로부터 **일곱 으뜸 영**이 연방우주들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사작용으로 다스리고 경영한다. **영원 항존자들**이 **하보나**의 10억 세계를 직접 경영하고, 이 완전한 구체 각각을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 한 분이 관장한다.

낙원 하보나 구체들을 제외하고, 우주 조직도표는 다음과 같은 단위로 규정된다:

연방우주 ----- 7.
대구역 ----- 70.
소구역 ----- 7,000.
지방우주 ----- 700,000.
성좌 ----- 70,000,000.
지역 체계 ----- 7,000,000,000.
인간거주가능 행성 --- 7,000,000,000,000.

일곱 연방우주 각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하나의 체계는 약 ----- 1,000세계,
하나의 성좌는(100체계) ----- 100,000 세계,
하나의 우주는(100성좌) ----- 10,000,000세계,
하나의 소구역은(100우주) ----- 1,000,000,000세계,
하나의 대구역은(100소구역) ---- 100,000,000,000세계,
하나의 연방우주는(10대구역) --- 1,000,000,000,000세계를 포함한다.
이런 건적 전체는 최선의 추정치인데, 새로운

15:2.7 (166.6) 5. *The Major Sector*. One hundred minor sectors (about 100,000,000,000 inhabitable worlds) make one major sector. Each major sector is provided with a superb headquarters and is presided over by three Perfection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15:2.8 (166.7) 6. *The Superuniverse*. Ten major sectors (about 1,000,00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superuniverse. Each superuniverse is provided with an enormous and glorious headquarters world and is ruled by three Ancients of Days.

15:2.9 (166.8) 7. *The Grand Universe*. Seven superuniverses make up the present organized grand universe, consisting of approximately seven trillion inhabitable worlds plus the architectural spheres and the one billion inhabited spheres of Havona. The superuniverses are ruled and administered indirectly and reflectively from Paradise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are directly administered by the Eternals of Days, one such Supreme Trinity Personality presiding over each of these perfect spheres.

15:2.10 (167.1) Excluding the Paradise-Havona spheres, the plan of universe organization provides for the following units:

15:2.11 (167.2) Superuniverses..... 7

15:2.12 (167.3) Major sectors..... 70

15:2.13 (167.4) Minor sectors..... 7,000

15:2.14 (167.5) Local universes..... 700,000

15:2.15 (167.6) Constellations.....70,000,000

15:2.16 (167.7) Local systems..... 7,000,000,000

15:2.17 (167.8) Inhabitable planets.. 7,000,000,000,000

15:2.18 (167.9)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constituted, approximately, as follows:

15:2.19 (167.10) One system embraces, approximately..... 1,000 worlds

15:2.20 (167.11) One constellation (100 systems).....100,000 worlds

15:2.21 (167.12) One universe (100 constellations)..... 10,000,000 worlds

15:2.22 (167.13) One minor sector (100 universes)..... 1,000,000,000 worlds

15:2.23 (167.14) One major sector (100 minor sectors).... 100,000,000,000 worlds

15:2.24 (167.15) One superuniverse (10 major sectors)...1,000,000,000,000 worlds

15:2.25 (167.16) All such estimates are

체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한편 다른 조계들은 물질 실존 단계를 잠정적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3. 오르본톤 연방우주

유란시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가득한 영역 전체는, 실제로 광우주의 일곱째 지역, 즉 **오르본톤** 연방우주에 속한다. 방대한 **은하수** 별 체계는 **오르본톤**의 중앙 핵을 나타내는데, 너희 지방우주 경계선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항성, 우주의 흑암 섬, 이중의 별, 구형{球形}의 집단, 별 구름, 나선형 및 기타 성운{星雲}들로 이뤄진 이 거대한 집합체는, 무수한 개별 행성과 함께, 시계를 닮은 길쭉한 원형{圓形}을 형성하는데, 진화하는 인간거주 우주 중에서 약 7분의 1이 묶여 있다.

너희가 **유란시아**의 천문{天文} 위치에서, 거대한 **은하수**에 가까운 체계들의 단면을 들여다본다면, 너희는 **오르본톤**의 구체들이 길쭉한 거대한 평면, 즉 폭이 두께보다 훨씬 크고 길이가 폭보다 훨씬 큰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관측한다.

소위 **은하수**를 관찰하면, 한 방향에서 하늘을 볼 때에는 **오르본톤** 별 밀도가 비교적 증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우리 물질 연방우주의 주요 평면에서 멀어질수록, 별들 및 다른 구체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한다. 관찰하는 각도가 맞을 경우에, 최고 밀도를 갖는 이 영역의 주요 본체를 들여다볼 때, 너희는 거주에 적합한 우주 및 만물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오르본톤의 10개 주요 구획 중에서 여덟 개는, **유란시아인** 천문학자가 대략 확인했다. 다른 두 개는 인식될 정도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너희는 이 현상을 안쪽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르본톤** 연방우주를 공간 속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일곱째 성단{星團}의 10개 대구역을 즉각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소구역의 자전 중심은, **사기타리우스**라는 거대하고 조밀한 별 구름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희 지방우주 및 그에 관련된 피조물 전체가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너희는 방대한 **사기타리우스** 하위 성단 체계의 반대편으로부터 엄청난 별 소용돌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별 구름 줄기들을 목격할 것이다.

너희의 태양 및 그것과 연관된 행성들이 속하는 물리 체계의 핵심은, 옛 **앤드로노버** 성운의 중앙이다. 전에 나선형이었던 이 성운은, 너희 태양계가 탄생하면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인력{引

approximations at best, for new systems are constantly evolving while other organizations are temporarily passing out of material existence.

3.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15.3.1 (167.17) Practically all of the starry realms visible to the naked eye on Urantia belong to the seventh section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vast Milky Way starry system represents the central nucleus of Orvonton, being largely beyond the borders of your local universe. This great aggregation of suns, dark islands of space, double stars, globular clusters, star clouds, spiral and other nebulae, together with myriads of individual planets, forms a watchlike, elongated-circular grouping of about one seventh of the inhabited evolutionary universes.

15.3.2 (167.18) From the astronomical position of Urantia, as you look through the cross section of near-by systems to the great Milky Way, you observe that the spheres of Orvonton are traveling in a vast elongated plane, the breadth being far greater than the thickness and the length far greater than the breadth.

15.3.3 (167.19) Observation of the so-called Milky Way discloses the comparative increase in Orvonton stellar density when the heavens are viewed in one direction, while on either side the density diminishes; the number of stars and other spheres decreases away from the chief plane of our material superuniverse. When the angle of observation is propitious, gazing through the main body of this realm of maximum density, you are looking toward the residential universe and the center of all things.

15.3.4 (167.20) Of the ten major divisions of Orvonton, eight have been roughly identified by Urantian astronomers. The other two are difficult of separate recognition because you are obliged to view these phenomena from the inside. If you could look upo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from a position far-distant in space, you would immediately recognize the ten major sectors of the seventh galaxy.

15.3.5 (168.1) The rotational center of your minor sector is situated far away in the enormous and dense star cloud of Sagittarius, around which your local universe and its associated creations all move, and from opposite sides of the vast Sagittarius subgalactic system you may observe two great streams of star clouds emerging in stupendous stellar coils.

15.3.6 (168.2) The nucleus of the physical system to which your sun and its associated planets belong is the center of the onetime Andronover nebula. This former spiral nebula was slightly distorted by the gravity disruptions associated with the events

力} 분열들로 인해 약간 일그러졌는데, 이웃에 있는 어떤 큰 성운의 가까운 접근 때문에 유발됐다. 근접된 이 충돌이 **앤드로노버**를 약간 구형{球形} 집합체가 되도록 변경했지만, 그 항성들 및 그에 관련된 물리적 집단의 양방향 행진을 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너희 태양계는 지금 이 일그러진 소용돌이 축들 가운데 하나 안에서 거의 중앙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별 흐름 가장자리를 향해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사기타리우스 구역과 **오르본톤**의 다른 모든 구역 및 구획이 **우버사** 주변을 돌고 있으며, 별을 관측하는 **유란시아인**이 혼동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은 다중{多重} 회전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과 상대적 왜곡에서 발생한다:

1. **유란시아**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함.
2. 예전의 **앤드로노버** 성운 핵심 둘레를 도는 너희 태양계의 회로.
3. **앤드로노버** 별 집합체 및 연합된 무리가, **네바돈** 별 구름의 복합 회전_인력 중심 둘레를 회전함.
4. **네바돈**의 국지적 별 구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창조계가, 그 소구역의 **사기타리우스** 중심 주변에서 회전함.
5. **사기타리우스**를 포함하여, 100개 소구역이 그 대구역 둘레를 자전함.
6. **오르본톤**의 **우버사** 본부에 관련한, 성류{星流}운동이라고 불리는, 10개 대구역의 소용돌이.
7. **오르본톤**, 그리고 **낙원**과 **하보나** 주변의 연합된 여섯 연방우주의 운동, 즉 연방우주 공간 수준의 반{反}시계방향 행렬.

이 다중{多重} 움직임은 여러 종류에 속한다: 너희 행성과 너희 태양계의 공간 경로는 유전으로 물려받았고, 기원할 때부터 타고났다. **오르본톤**의 절대 반시계방향 움직임 역시 유전됐으며, 총괄우주 건축양식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간접하는 움직임은 혼합 기원을 갖는데, 일부는 물질_에너지의 구조적 분열로부터 연방우주들 안으로 파생됐고, 일부는 **낙원** 힘 조직가들의 총명한 의도적 활동으로 생겨났다.

지방우주는 **하보나**에 접근함에 따라 더 가까운 근접성을 가지며, 회로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증대된 초월_부과물이 층층으로 쌓인다. 그러나 영원한 중앙으로부터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체계, 층, 회로, 및 우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which were attendant upon the birth of your solar system, and which were occasioned by the near approach of a large neighboring nebula. This near collision changed Andronover into a somewhat globular aggregation but did not wholly destroy the two-way procession of the suns and their associated physical groups. Your solar system now occupies a fairly central position in one of the arms of this distorted spiral, situated about halfway from the center out towards the edge of the star stream.

15:3.7 (168.3) The Sagittarius sector and all other sectors and divisions of Orvonton are in rotation around Uversa, and some of the confusion of Urantian star observers arises out of the illusions and relative distortions produced by the following multiple revolutionary movements:

- 15:3.8 (168.4) 1. The revolution of Urantia around its sun.
- 15:3.9 (168.5) 2. The circuit of your solar system about the nucleus of the former Andronover nebula.
- 15:3.10 (168.6) 3. The rotation of the Andronover stellar family and the associated clusters about the composite rotation-gravity center of the star cloud of Nebadon.
- 15:3.11 (168.7) 4. The swing of the local star cloud of Nebadon and its associated creations around the Sagittarius center of their minor sector.
- 15:3.12 (168.8) 5. The rotation of the one hundred minor sectors, including Sagittarius, about their major sector.
- 15:3.13 (168.9) 6. The whirl of the ten major sectors, the so-called star drifts, about the Uversa headquarters of Orvonton.
- 15:3.14 (168.10) 7. The movement of Orvonton and six associated superuniverses around Paradise and Havona, the counterclockwise processional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15:3.15 (168.11) These multiple motions are of several orders: The space paths of your planet and your solar system are genetic, inherent in origin. The absolute counterclockwise motion of Orvonton is also genetic, inherent in the architectural plans of the master universe. But the intervening motions are of composite origin, being derived in part from the constitutive segmentation of matter-energy into the superuniverses and in part produced by the intelligent and purposeful a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15:3.16 (168.12) The local universes are in closer proximity as they approach Havona; the circuits are greater in number, and there is increased superimposition, layer upon layer. But farther out from the eternal center there are fewer and fewer systems, layers, circuits, and universes.

4. 성운--우주들의 조상

창조물과 우주 조직은 언제까지나 무한한 **창조주**들 및 그 동역자들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현상 전체는 정해진 기법에 따라 힘과 에너지와 물질의 인력 법칙에 일치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공간에서 우주의 힘_충전과 관련된 신비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궁극체(窮極體) 단계 이후의 물질 창조 조직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지만, 궁극체라는 시공우주 선조(先祖)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선조 힘들이 **낙원**에서 기원됐다고 확신하는데, **낙원**의 엄격한 거대한 외곽선 안에서 충만된 공간을 관통하여 영구히 회전하기 때문이다. **낙원** 인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음에도, 모든 물질화의 조상인 이 공간 힘_충전이 하부 **낙원** 현존에 대해서 항상 반응하는데, 하부 **낙원** 중심의 안과 밖에서 뚜렷이 회로를 이루기 때문이다.

낙원 힘 조직가들이 공간 잠재력을 원시 힘으로 변화시키고, 물질 이전의 이 잠재력을 물질 실체에 해당하는 1차 및 2차 에너지 형태화로 진전시킨다. 이 에너지가 인력_반응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 동력 지휘자들 및 그 연방우주 체제 동역자들이 무대(舞臺)에 등장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주들의 다중 동력 회로와 에너지 경로를 설치하도록 고안된, 끝없는 조종을 시작한다. 이렇게 물리적 물질이 공간 안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우주 조직화를 개시하기 위한 무대가 설치된다.

이 에너지 분할은, **네바돈**의 물리학자들이 결코 해답을 얻은 적이 없는 현상이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은 **낙원** 힘 조직가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으며, 살아있는 동력 지휘자들은, 공간_에너지를 취급할 능력은 있더라도, 그토록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다루는 에너지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각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원 힘 조직가들이 성운 창설자이며;그들은 자신의 공간 현존 주변에 거대한 힘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시작 되면, 모두_충만시키는 힘이 우주 물질의 궁극체 단위들을 결국 출현시키기 위해 동원될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제한될 수 없다. 나선형의 성운 및 다른 성운, 즉 직접_기원되는 항성들과 그 다양한 체계의 모체(母體) 회전구름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외부 공간에서는 10가지 다른 형태의 성운, 즉 1차 우주 진화의 국면들을 볼 수 있고, 이 방대한 에너지 회전구름은 일곱 연방우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원됐다.

4. NEBULAE — THE ANCESTORS OF UNIVERSES

15.4.1 (169.1) While creation and universe organization remain forever under the control of the infinite Creators and their associates, the whole phenomenon proceeds in accordance with an ordained technique and in conformity to the gravity laws of force, energy, and matter. But there is something of mystery associated with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we quite understand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creations from the ultimatonic stage forward,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cosmic ancestry of the ultimatons. We are confident that these ancestral forces have a Paradise origin because they forever swing through pervaded space in the exact gigantic outlines of Paradise. Though non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this force-charge of space, the ancestor of all materialization, does always respond to the presence of nether Paradise, being apparently circuited in and out of the nether Paradise center.

15.4.2 (169.2)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transmute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and evolve this prematerial potential into the primary and secondary energy manifestations of physical reality. When this energy attains gravity-responding levels,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regime appear upon the scene and begin their never-ending manipulations designed to establish the manifold power circuits and energy channel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us does physical matter appear in space, and so is the stage set for the inauguration of universe organization.

15.4.3 (169.3) This segmentation of energy is a phenomenon which has never been solved by the physicists of Nebadon. Their chief difficulty lies in the relative inaccessibility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for the living power directors, though they are competent to deal with space-energy, do not have the least conception of the origin of the energies they so skillfully and intelligently manipulate.

15.4.4 (169.4) Paradise force organizers are nebulae originators; they are able to initiate about their space presence the tremendous cyclones of force which, when once started, can never be stopped or limited until the all-pervading forces are mobilized for the eventual appearance of the ultimatonic units of universe matter. Thus are brought into being the spiral and other nebulae, the mother wheels of the direct-origin suns and their varied systems. In outer space there may be seen ten different forms of nebulae, phases of primary universe evolution, and these vast energy wheels

성운은, 크기와 유래하는 숫자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별 자손 및 행성 자손의 총 질량에서 매우 다양하다. **오르본톤** 바로 북쪽에 있지만 연방 우주 공간 층에서 항성을 형성하고 있는 한 성운은, 이미 약 4만 개의 항성을 탄생시켰고, 모체 바퀴는 여전히 항성을 내던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크기가 너희 것보다 여러 배에 달한다. 외부 공간의 비교적 큰 성운 가운데 일부는, 1억 개에 달하는 항성을 기원시키고 있다.

어떤 지방우주들이 단일 성운의 산물로부터 조직돼 왔음에도, 성운들은 소구역 또는 지방우주 같은 경영 단위 가운데 어떤 것과도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각 지방우주는, 성운 관계와 상관없이, 연방우주의 전체 에너지 축적량 중에서 정확하게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데, 에너지는 성운에 따라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에너지는 보편적으로 배분된다.

나선형 성운 전체가 항성 만들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더리는 그것에서 떨어져나간 별 후손 가운데 다수를 계속 통제해 오고 있으며, 그것의 나선형 모습은, 항성들이 긴밀한 대형을 이루면서 성운 축에서 멀어졌지만 다양한 경로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 지점에서 관찰하기는 쉽지만, 다른 회귀 경로에서 성운 축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널리 퍼져 있을 때에는 관찰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지금 **오르본톤**에서 항성을 형성하는 활발한 성운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그 연방우주 외곽에 있는 **안드로메다**는 매우 활동적이다. 멀리 있는 이 성운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너희는 그것을 볼 때 눈에 들어온 그 빛이, 멀리 있는 그 항성에서 거의 100만 년 전에 떠났음을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한다.

은하수 성단은 과거의 수많은 나선형 및 다른 성운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것이 아직도 원래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격변과 외부 흡인의 결과로, 다수가 크게 뒤틀리고 다시 배치돼서, 이 거대한 집합체들은, **마젤란 구름**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항성들로 이뤄진 거대한 발광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든다. 구형(球形)의 별 무리가 **오르본톤** 외부 가장자리 근처를 차지하고 있다.

오르본톤의 방대한 별 구름은, **은하수** 성단 밖에 있는 공간 구역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도의 성운들과 비교될만한 물질의 개별 집합체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아무튼 소위 우주 별 구름이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 다수는 기체 물질로만 구성돼 있다. 이런 별 기체 구름의 에너지 잠재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일부는 근처에 있는 항성들에게 흡수되고, 항성 방산물로서 공간에 다시 발산된다.

had the same origin as did thos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15.4.5 (169.5) Nebulae vary greatly in size and in the resulting number and aggregate mass of their stellar and planetary offspring. A sun-forming nebula just north of the borders of Orvonton, but within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has already given origin to approximately forty thousand suns, and the mother wheel is still throwing off suns, the majority of which are many times the size of yours. Some of the larger nebulae of outer space are giving origin to as many as one hundred million suns.

15.4.6 (169.6) Nebulae are not directly related to any of the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minor sectors or local universes, although some local universes have been organized from the products of a single nebula. Each local universe embraces exactly one one-hundred-thousandth part of the total energy charge of a superuniverse irrespective of nebular relationship, for energy is not organized by nebulae — it is universally distributed.

15.4.7 (170.1) Not all spiral nebulae are engaged in sun making. Some have retained control of many of their segregated stellar offspring, and their spiral appearance is occasioned by the fact that their suns pass out of the nebular arm in close formation but return by diverse routes, thus making it easy to observe them at one point but more difficult to see them when widely scattered on their different returning routes farther out and away from the arm of the nebula. There are not many sun-forming nebulae active in Orvonton at the present time, though Andromeda, which is outside the inhabited superuniverse, is very active. This far-distant nebula is visible to the naked eye, and when you view it, pause to consider that the light you behold left those distant suns almost one million years ago.

15.4.8 (170.2) The Milky Way galaxy is composed of vast numbers of former spiral and other nebulae, and many still retain their original configuration. But as the result of internal catastrophes and external attraction, many have suffered such distortion and rearrangement as to cause these enormous aggregations to appear as gigantic luminous masses of blazing suns, like the Magellanic Cloud. The globular type of star clusters predominates near the outer margins of Orvonton.

15.4.9 (170.3) The vast star clouds of Orvonton should be regarded as individual aggregations of matter comparable to the separate nebulae observable in the space regions external to the Milky Way galaxy. Many of the so-called star clouds of space, however, consist of gaseous material only. The energy potential of these stellar gas clouds is unbelievably enormous, and some of it is taken up by near-by suns and redispersed in

space as solar emanations.

5. 천체의 기원

연방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에 포함되는 물질 대부분은, 성운 회전구름에서 기원되며; 열린 공간에서 기원되는 물질의 양은 일정하게 변한다 해도, (건축양식 구체들을 건설하는 경우처럼) 동력 지휘자들의 직접 행위로 조직되는 연방우주 물질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항성, 행성, 및 다른 구체들은, 기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집단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 **수축하는 동심{同心} 고리.** 성운이 모두 나선형은 아니다. 다수의 거대 성운은, 이중{二重} 별 체계로 나뉘거나 나선형으로 진화하는 대신, 여러 겹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응축 과정을 거친다. 그런 성운은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중앙 항성이, 고리 모양의 물질 형태를 가진 수많은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소용돌이치는 별은,** 고도로 가열된 기체로 구성된 거대한 모체 회전구름에서 방출된 그런 항성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고리 모양으로가 아니라, 오른쪽 및 왼쪽 방향 행렬로 방출된다. 소용돌이치는 별들은 나선형 이외의 성운에서도 기원된다.

3. **인력 폭발 행성.** 나선형 또는 막대기 모양의 성운에서 탄생할 때, 항성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방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항성은 상당히 기체 상태에 있으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식고 응축되면, 거대한 질량의 어떤 물질, 즉 공간의 어떤 거대한 항성 또는 흑암 섬 가까이에서 회전할 수도 있다. 그런 접근은 충격을 가져올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지만, 인력이 더 큰 본체를 끌어당겨서, 비교적 작은 것 안에 조수{潮水} 격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운데, 그리하여 진동을 일으킨 항성 반대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조수 융기가 일어나게 한다. 이것들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이 폭발하는 분출은, 분출되는 그 항성의 인력 교정 지대를 넘어서 투사될지도 모르는, 일련의 변화하는 크기의 물질 집합체를 산출하며,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고려된 두 본체 가운데 하나의 주변 궤도 안에서 안정돼 간다. 나중에는 더 큰 물질 집합체들이 결합하고, 작은 본체들을 자기 쪽으로 점점 더 당긴다. 비교적 작은 체계들에서 고체 행성 가운데 다수가 이런 방법으로 생기게 된다. 너희 태양계가 바로 이렇게 기원됐다.

4. **원심력 행성 소산물.** 거대한 항성은, 특정한 발달 단계에 도달할 때, 그리고 그 회전 속도가 크게 증대되면,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모체 항성을 도는 작은 세계들을 형성하도록 모아진다.

5. THE ORIGIN OF SPACE BODIES

15:5.1 (170.4) The bulk of the mass contained in the suns and planets of a superuniverse originates in the nebular wheels; very little of superuniverse mass is organized by the direct action of the power directors (as in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spheres), although a constantly varying quantity of matter originates in open space.

15:5.2 (170.5) As to origin, the majority of the suns, planets, and other spheres can be classified in one of the following ten groups:

15:5.3 (170.6) 1. *Concentric Contraction Rings.* Not all nebulae are spiral. Many an immense nebula, instead of splitting into a double star system or evolving as a spiral, undergoes condensation by multiple-ring formation. For long periods such a nebula appears as an enormous central sun surrounded by numerous gigantic clouds of encircling, ring-appearing formations of matter.

15:5.4 (170.7) 2. *The Whirled Stars* embrace those suns which are thrown off the great mother wheels of highly heated gases. They are not thrown off as rings but in right- and left-handed processions. Whirled stars are also of origin in other-than-spiral nebulae.

15:5.5 (170.8) 3. *Gravity-explosion Planets.* When a sun is born of a spiral or of a barred nebula, not infrequently it is thrown out a considerable distance. Such a sun is highly gaseous, and subsequently, after it has somewhat cooled and condensed, it may chance to swing near some enormous mass of matter, a gigantic sun or a dark island of space. Such an approach may not be near enough to result in collision but still near enough to allow the gravity pull of the greater body to start tidal convulsions in the lesser, thus initiating a series of tidal upheavals which occur simultaneously on opposite sides of the convulsed sun. At their height these explosive eruptions produce a series of varying-sized aggregations of matter which may be projected beyond the gravity-reclamation zone of the erupting sun, thus becoming stabilized in orbits of their own around one of the two bodies concerned in this episode. Later on the larger collections of matter unite and gradually draw the smaller bodies to themselves. In this way many of the solid planets of the lesser systems are brought into existence. Your own solar system had just such an origin.

15:5.6 (171.1) 4. *Centrifugal Planetary Daughters.* Enormous suns, when in certain stages of development, and if their revolutionary rate greatly accelerates, begin to throw off large quantities of matter which may subsequently be assembled to

5. **인력 결핍 구체**. 각각의 별 크기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항성이 이 한계에 도달할 때,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항성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며; 항성분열이 발생하고, 이 종류에 속하는 한 쌍의 새 별이 태어난다. 이 거대한 붕괴의 부산물로 인해, 수많은 작은 행성이 나중에 형성될 수 있다.

6. **불잡힌 별**. 비교적 작은 체계 안에서, 가장 큰 외부 행성이 때로 그 주변에 있는 세계들을 끌어당기는 반면, 항성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항성 쪽으로 마지막 돌진을 시작한다. 너희 태양계의 경우에, 그런 종말은 네 개의 안쪽 행성이 태양에게 이끌리는 반면,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남은 세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크게 증대될 것을 의미한다. 한 항성계의 그런 종말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인접한 항성을 생산하며, 이것은 이중(二重) 별이 형성되는 한 유형이다. 그런 격변은, 연방우주별 집합체들 중에서 바깥쪽 가장자리 이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7. **누적된 구체**. 공간에서 떠도는 방대한 양의 물질로부터, 작은 행성들이 서서히 축적될 수 있다. 이것들은 유성{流星}이 불음으로써, 그리고 여러 약한 충돌로 말미암아 커진다. 특정한 공간 구역들에서는, 그런 형태의 행성 탄생에 조건이 유리하다. 많은 인간거주 세계가 그렇게 기원했다.

밀도가 높은 흑암 섬 가운데 일부는, 공간에서 변화하는 에너지 증가의 직접 결과다. 이 흑암 섬 가운데 다른 집단은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질, 즉 공간 도처에 떠도는 단순한 파편과 운석이 축적됨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물질 집합체는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고, 밀도를 제외하면 구성면에서 **유란시아**와 매우 흡사하다.

8. **식어버린 항성**. 공간에 있는 흑암 섬 가운데 일부는 식어버린 고립된 항성인데, 가용{可用} 공간 에너지가 모두 방출된 상태다. 조직된 물질 단위들은, 충분한 응축, 즉 실질적으로 완성된 응축에 가까우며; 크게 응축된 물질로 이뤄진 그런 거대한 덩어리가 공간 회로에서 다시 충전되고, 그리하여 어떤 충돌 또는 그와 비슷하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공우주 사건을 겪은 뒤에, 새로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순환을 준비하게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요구된다.

9. **충돌한 구체**. 촘촘하게 집단을 이루는 지역의 경우에, 충돌이 흔하다. 그런 천문학적 재조정은 거대한 에너지 변화와 물질 변형을 동반한다. 죽은 항성과 충돌하는 것은, 광범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는 데 특히 영향을 미친다. 충돌로 생기는 파편은, 나중에 행성 본체들이 필사자 거주지에 알맞게 형성되도록, 물질 핵을 종종 구성한다.

form small worlds that continue to encircle the parent sun.

15:5.7 (171.2) 5. *Gravity-deficiency Spheres*. There is a critical limit to the size of individual stars. When a sun reaches this limit, unless it slows down in revolutionary rate, it is doomed to split; sun fission occurs, and a new double star of this variety is born. Numerous small planets may be subsequently formed as a by-product of this gigantic disruption.

15:5.8 (171.3) 6. *Contractural Stars*. In the smaller systems the largest outer planet sometimes draws to itself its neighboring worlds, while those planets near the sun begin their terminal plunge. With your solar system, such an end would mean that the four inner planets would be claimed by the sun, while the major planet, Jupiter, would be greatly enlarged by capturing the remaining worlds. Such an end of a solar system would result in the production of two adjacent but unequal suns, one type of double star formation. Such catastrophes are infrequent except out on the fringe of the superuniverse starry aggregations.

15:5.9 (171.4) 7. *Cumulative Spheres*. From the vast quantity of matter circulating in space, small planets may slowly accumulate. They grow by meteoric accretion and by minor collisions. In certain sectors of space, conditions favor such forms of planetary birth. Many an inhabited world has had such an origin.

15:5.10 (171.5) Some of the dense dark islands are the direct result of the accretions of transmuting energy in space. Another group of these dark islands have come into being by the accumulation of enormous quantities of cold matter, mere fragments and meteors, circulating through space. Such aggregations of matter have never been hot and, except for density, are in composition very similar to Urantia.

15:5.11 (171.6) 8. *Burned-out Suns*. Some of the dark islands of space are burned-out isolated suns, all available space-energy having been emitted. The organized units of matter approximate full condensation, virtual complete consolidation; and it requires ages upon ages for such enormous masses of highly condensed matter to be recharged in the circuits of space and thus to be prepared for new cycles of universe function following a collision or some equally revivifying cosmic happening.

15:5.12 (171.7) 9. *Collisional Spheres*. In those regions of thicker clustering, collisions are not uncommon. Such an astronomic readjustment is accompanied by tremendous energy changes and matter transmutations. Collisions involving dead suns are peculiarly influential in creating widespread energy fluctuations. Collisional debris often constitutes the material nucleuses for the

10. **건축양식 세계**. 너희 지방우주의 본부인 **살빙톤**, 그리고 우리 연방우주 정부의 소재지인 **우버사**처럼,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계획과 명세서(明細書)에 따라서 세워진 세계다.

항성을 진화시키고 행성을 분리시키는 수많은 다른 기법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별 체계와 행성 집단이 실존하게 되는 방식을 암시한다. 별이 변질되고 행성이 진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다양한 기법을 적으려고 시도하려면, 거의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항성이 형성되고 행성이 기원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너희 별 연구자들이 하늘을 살펴보면, 별이 진화하는 이 모든 형식을 알려주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빛나지 않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의 형성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 이 덩어리들은 광대한 물질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거주 행성으로 이용된다.

6. 공간의 구체

기원에 상관없이, 공간의 다양한 구체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1. 항성 --공간의 별들.
2. 공간의 흑암 섬들.
3. 사소한 천체 --혜성, 운석, 및 미행성체{微行星體}들.
4. 인간거주 세계들을 포함하는 행성들.
5. 건축양식 구체 --이상적{理想的}으로 적절한 세계들.

건축양식 구체들을 제외하고, 모든 천체는 진화로 기원돼 왔는데, **신격**의 명령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진화적이고, **신격**이 창조한 지성체 및 결말에 이른 지성체 가운데 다수의 작동을 통한 시_공간 기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펼쳐져 왔다는 의미에서 진화적이다.

항성. 이것은 공간에서 모든 다양한 실존 단계에 있는 별이다. 더러는 홀로 진화하는 공간 체계이며;더러는 이중성{二重星}, 즉 수축하거나 없어지는 행성 체계다. 공간의 별은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상태와 단계로 존재한다. 너희는, 열을 동반하며 빛을 내는 항성에 익숙하지만;열없이 빛나는 항성도 있다.

subsequent formation of planetary bodies adapted to mortal habitation.

15:5.13 (172.1) 10. *Architectural Worlds*. These are the worlds which are built according to plans and specifications for some special purpose, such as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and Uversa, the seat of government of our superuniverse.

15:5.14 (172.2) There are numerous other techniques for evolving suns and segregating planets, but the foregoing procedures suggest the methods whereby the vast majority of stellar systems and planetary families are brought into existence. To undertake to describe all the various techniques involved in stellar metamorphosis and planetary evolution would require the narration of almost one hundred different modes of sun formation and planetary origin. As your star students scan the heavens, they will observe phenomena indicative of all these modes of stellar evolution, but they will seldom detect evidence of the formation of those small, nonluminous collections of matter which serve as inhabited planets, the most important of the vast material creations.

6. THE SPHERES OF SPACE

15:6.1 (172.3) Irrespective of origin, the various spheres of space are classifiable into the following major divisions:

- 15:6.2 (172.4) 1. The suns — the stars of space.
- 15:6.3 (173.1) 2. The dark islands of space.
- 15:6.4 (173.2) 3. Minor space bodies — comets, meteors, and planetesimals.
- 15:6.5 (173.3) 4. The planets, including the inhabited worlds.
- 15:6.6 (173.4) 5. Architectural spheres — worlds made to order.

15:6.7 (173.5) With the exception of the architectural spheres, all space bodies have had an evolutionary origin, evolutionary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been brought into being by fiat of Deity, evolutionary in the sense that the creative acts of God have unfolded by a time-space technique through the operation of many of the created and eventuated intelligences of Deity.

15:6.8 (173.6) *The Suns*. These are the stars of space in all their various stages of existence. Some are solitary evolving space systems; others are double stars, contracting or disappearing planetary systems. The stars of space exist in no less than a thousand different states and stages. You are familiar with suns that emit light accompanied by heat; but there are also suns which shine without heat.

평범한 항성 하나가 열과 빛을 수조{兆} 년 동안 계속 방출한다는 사실이, 각 물질 단위가 포함하는 에너지의 방대한 저장량을 잘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입자 속에 저장된 실제 에너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타오르는 항성 내부에 널리 퍼지는 엄청난 열 압력 및 연합된 에너지 활동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에너지는 거의 전부 빛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 아래에서, 이 항성들은 확립된 공간 회로에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공간 에너지 대부분을 변형시키고 방출해 낼 수 있게 한다. 항성 발전기가, 물질 에너지의 여러 국면과 물질의 모든 형태를 끌어들이고, 그런 후에 나눠준다. 항성은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지방 가속기{加速機}로 활동하는데, 자동 동력_통제소 역할을 한다.

오르본톤 연방우주는, 10조가 넘는 타오르는 항성의 빛을 받고 가열된다. 이 항성들은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 천체 체계에 속하는 별이다. 2조 이상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작아서, **유란시아**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총괄우주에는, 너희 세상의 바닷물을 잔에 담을 때 그 잔의 개수만큼 많은 항성이 있다.

공간의 흑암 섬. 이것은 죽은 항성, 그리고 빛과 열이 없는 물질의 거대한 기타 집합체다. 흑암 섬은 때로 거대한 덩어리이고, 우주 평형과 에너지를 다룰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큰 덩어리들 가운데 일부의 밀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거대하게 농축된 이 덩어리가 이 흑암 섬들로 하여금 강력한 평형 원동력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웃에 있는 큰 체계들을 효과적인 끈으로 붙잡는다. 이것들은 많은 성좌에서 인력의 힘 균형을 유지하며; 이것들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항성들 속으로 빠르게 파괴돼서 들어갈 많은 물리 체계들이, 이 보호 흑암 섬들의 인력 지배 속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흑암 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본체의 인력 작용을 측정해 왔으며, 따라서 공간의 흑암 섬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정한 체계를 그 진로 안에 안정되게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보조 천체. 공간에서 떠돌며 진화하는 물질인 유성 및 다른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와 물질 내용물로 이뤄진 막대한 집합체를 구성한다.

많은 혜성{彗星}은, 항성을 탄생시킨 모체 회전구름이 낳은 정착되지 않은 야생 자손인데, 중앙에서 지배하는 항성 통제 아래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혜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기원을 갖는다. 혜성의 꼬리는, 잡아당기는 본체 또는 항성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데, 크게 팽창된 기체의 전기적 반작용 때문이고, 항성에서 방사되는 빛 그리

15:6.9 (173.7) The trillions upon trillions of years that an ordinary sun will continue to give out heat and light well illustrates the vast store of energy which each unit of matter contains. The actual energy stored in these invisible particles of physical matter is well-nigh unimaginable. And this energy becomes almost wholly available as light when subjected to the tremendous heat pressure and the associated energy activities which prevail in the interior of the blazing suns. Still other conditions enable these suns to transform and send forth much of the energy of space which comes their way in the established space circuits. Many phases of physical energy and all forms of matter are attracted to, and subsequently distributed by, the solar dynamos. In this way the suns serve as local accelerators of energy circulation, acting as automatic power-control stations.

15:6.10 (173.8)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illuminated and warmed by more than ten trillion blazing suns. These suns are the stars of your observable astronomic system. More than two trillion are too distant and too small ever to be seen from Urantia. But in the master universe there are as many suns as there are glasses of water in the oceans of your world.

15:6.11 (173.9) *The Dark Islands of Space.* These are the dead suns and other large aggregations of matter devoid of light and heat. The dark islands are sometimes enormous in mass and exert a powerful influence in universe equilibrium and energy manipulation. The density of some of these large masses is well-nigh unbelievable. And this great concentration of mass enables these dark islands to function as powerful balance wheels, holding large neighboring systems in effective leash. They hold the gravity balance of power in many constellations; many physical systems which would otherwise speedily dive to destruction in near-by suns are held securely in the gravity grasp of these guardian dark islands. It is because of this function that we can locate them accurately. We have measured the gravity pull of the luminous bodies, and we can therefore calculate the exact size and location of the dark islands of space which so effectively function to hold a given system steady in its course.

15:6.12 (173.10) *Minor Space Bodies.* The meteors and other small particles of matter circulating and evolving in space constitute an enormous aggregate of energy and material substance.

15:6.13 (173.11) Many comets are unestablished wild offspring of the solar mother wheels, which are being gradually brought under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ing sun. Comets also have numerous other origins. A comet's tail points away from the attracting body or sun because of the electrical reaction of its highly expanded gases and because

고 다른 에너지의 실제 압력 때문이다. 이 현상은 빛의 실제 및 그와 관련된 에너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빛이 무게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빛은 실재하는 물질이고, 단순히 가정적(假定的)인 에테르 파동이 아니다.

행성 이것은 항성 또는 어떤 다른 천체 주변 궤도를 따라가는 물질 중에서 비교적 큰 집합체이며; 행성의 크기는 작은 행성으로부터 거대한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의 구체에까지 이른다. 떠도는 공간 물질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세계들은, 우연히 가까이 있는 항성과 적당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지성 있는 거주민을 보호하기에 더 이상적인 행성이다. 대체로, 식어버린 항성은 생명체에 적합하지 않으며; 활기 있고 빛나는 항성으로부터 대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부피가 너무 크며; 중력이 표면에서 엄청나게 크다.

너희 연방우주의 경우에, 40개마다 한 개의 차가운 행성에는 너희 계층의 존재가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과도하게 가열된 항성과, 가장 자리의 얼어붙은 세계는, 고등 생명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희 태양계에서는, 현재 세 개의 행성만이 생명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유란시아**는 크기와 밀도와 위치 등, 많은 점에서 인간 거주지로 이상적이다.

물리적_에너지 행태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개별 행성 및 지역 체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환경에는 국지적 영향력이 많이 작용한다. 거의 끝없이 다양한 피조 생명체 및 기타 살아있는 물질화 현상이, 셀 수 없이 많은 공간 세계의 특징이다. 아무튼, 주어진 어떤 체계 안에서 한 집단으로 연합된 세계들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으며, 한편 지성 생명체의 우주 원형도 있다. 동일한 물리 회로에 속하는 행성 체계들 사이에는 물리적 관계가 있으며, 우주들의 궤도 둘레를 끝없이 회전하면서 서로 가깝게 따라간다.

7. 건축양식 구체

각 연방우주 정부는, 공간 구획(區劃)에 속하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중심 근처에서 주관하는데, 그 정부는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인된 인격체들이 거기에 산다. 이 본부 세계는 건축양식(建築樣式) 구체,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이하게 구축된 천체다. 이 구체들은, 가까이 있는 항성들의 빛을 공유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조명되고 따뜻하게 된다. 각각에는 **낙원**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열없이 빛을 발하는 하나의 항성이 있고, 동시에 구체 표면 가까이 있는 어떤 에너지 흐름의 순환으로 열이 공급된다. 이 본부 세계들은, 각 연방우주의 천문적(天文的) 중심 주변에 위치한 더 큰 체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of the actual pressure of light and other energies emanating from the sun. This phenomenon constitutes one of the positive proofs of the reality of light and its associated energies; it demonstrates that light has weight. Light is a real substance, not simply waves of hypothetical ether.

15.6.14 (173.12) *The Planets.* These are the larger aggregations of matter which follow an orbit around a sun or some other space body; they range in size from planetesimals to enormous gaseous, liquid, or solid spheres. The cold worlds which have been built up by the assemblage of floating space material, when they happen to be in proper relation to a near-by sun, are the more ideal planets to harbor intelligent inhabitants. The dead suns are not, as a rule, suited to life; they are usually too far away from a living, blazing sun, and further, they are altogether too massive; gravity is tremendous at the surface.

15.6.15 (173.13) In your superuniverse not one cool planet in forty is habitable by beings of your order. And, of course, the superheated suns and the frigid outlying worlds are unfit to harbor higher life. In your solar system only three planets are at present suited to harbor life. Urantia, in size, density, and location, is in many respects ideal for human habitation.

15.6.16 (173.14) The laws of physical-energy behavior are basically universal, but local influences have much to do with the physical conditions which prevail on individual planets and in local systems. An almost endless variety of creature life and other living manifestations characterizes the countless worlds of space. There are, however, certain points of similarity in a group of worlds associated in a given system, while there also is a universe pattern of intelligent life. There are physical relationships among those planetary systems which belong to the same physical circuit, and which closely follow each other in the endless swing around the circle of universes.

7. THE ARCHITECTURAL SPHERES

15.7.1 (174.1) While each superuniverse government presides near the center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its space segment, it occupies a world made to order and is peopled by accredited personalities.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rchitectural spheres, space bodies specifically constructed for their special purpose. While sharing the light of near-by suns, these spheres are independently lighted and heated. Each has a sun which gives forth light without heat, like the satellites of Paradise, while each is supplied with heat by the circulation of certain energy currents near the surface of the sphere. These headquarters worlds belong to one of the greater

시간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표준화돼 있다. **오르본톤** 연방우주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30일에 해당하고, **오르본톤**의 1년은 100표준일이다. 이 **우버사의** 한 해가 일곱째 연방우주에서 표준이 되고,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0일보다 22분 짧은데, 너희의 햇수로 따질 때 약 8과 5분의 1년이 된다.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들은, 완전한 중심 원형{原型}인 **낙원**의 본성과 융합함을 따른다. 실제로, 모든 본부 세계는 낙원 같은 곳이다. 본부 세계들은 정말로 하늘의 거주지이고, **예루셈**으로부터 중앙 **섬**에 이르기까지, 물질 크기, 모론시아 아름다움, 그리고 영{靈} 영광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런 본부 세계의 모든 위성 역시 건축양식 구체다.

다양한 본부 세계에는, 각 국면의 물질적 및 영적 창조물이 제공된다. 모든 종류의 물질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존재가 우주들의 이 집결지 세계에서 편히 지낸다. 필사 피조물은, 우주를 상승할 때, 물질 영역으로부터 영적 영역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이 전에 실존했던 수준의 환경에 대한 감상과 즐거움을 잊지 않는다.

예루셈은, 너희 **사타니아** 지역 체계의 본부인데, 과도기 문화에 속하는 일곱 세계를 거느리고 있으며, 각각은 일곱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에는 모론시아 상태로 머무는 일곱 맨션 세계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의 첫 거주지다. 하늘이라는 말이 **유란시아**에서 사용돼 왔는데, 때로는 이 일곱 맨션 세계를 의미했으며, 첫 맨션 세계는 첫 하늘이라 불리고, 그런 식으로 일곱째까지 계속된다.

에덴시아는, 너희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의 본부이고, 교양과 훈련을 담당하는 70개 위성을 거느리는데, 상승자들은 인격을 활성화하고 통합하고 실현하는 **예루셈** 체제를 완결한 후 여기에 머문다.

살빙톤은, 너희 **네바돈** 지방우주의 수도인데, 10개 대학{大學} 무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각 대학 무리마다 49개의 구체로 이뤄져 있다. 사람은 자신의 성좌에서 사교 과정을 마친 후에 여기서부터 영성화 된다.

제3 U_ 소구역은, 너희 **엔사** 소구역의 본부인데, 상승한 생명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물리적 요구를 담당하는 일곱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제5 U_ 대구역은, 너희 **스프랜돈** 대구역의 본부이고, 연방우주의 진보하는 지적 훈련에 속하는 70개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systems situated near the astronomical center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15.7.2 (174.2) Time is standardized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The standard day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equal to almost thirty days of Urantia time, and the Orvonton year equals one hundred standard days. This Uversa year is standard in the seventh superuniverse, and it is twenty-two minutes short of three thousand days of Urantia time, about eight and one fifth of your years.

15.7.3 (174.3)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partake of the nature and grandeur of Paradise, their central pattern of perfection. In reality, all headquarters worlds are paradisiacal. They are indeed heavenly abodes, and they increase in material size, morontia beauty, and spirit glory from Jerusem to the central Isle. And all the satellites of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lso architectural spheres.

15.7.4 (174.4)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re provided with every phase of material and spiritual creation. All kinds of material, morontial, and spiritual beings are at home on these rendezvous worlds of the universes. As mortal creatures ascend the universe, passing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realms, they never lose their appreciation for, and enjoyment of, their former levels of existence.

15.7.5 (174.5) *Jerus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Satania, has its seven worlds of transition culture, each of which is encircled by seven satellites, among which are the seven mansion worlds of morontia detention, man's first postmortal residence. As the term heaven has been used on Urantia, it has sometimes meant these seven mansion worlds, the first mansion world being denominated the first heaven, and so on to the seventh.

15.7.6 (174.6) *Edentia*, the headquarters of your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has its seventy satellites of socializing culture and training, on which ascenders sojourn upon the completion of the Jerusem regime of personality mobilization, unification, and realization.

15.7.7 (174.7) *Salvington*, the capital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is surrounded by ten university clusters of forty-nine spheres each. Hereon is man spiritualized following his constellation socialization.

15.7.8 (174.8) *Uminor the third*, the headquarters of your minor sector, Ensa, is surrounded by the seven spheres of the higher physical studies of the ascendant life.

15.7.9 (174.9) *Umajor the fifth*, the headquarters of your major sector, Splandon, is surrounded by the seventy spheres of the advancing intellectual

우버사는, 너희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본부이며, 의지를 지닌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진보된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일곱 개의 고등 대학으로 바로 둘러싸여 있다. 놀라운 구체들로 구성된 이 일곱 집단은, 각각 70개의 특화된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계들은 우주 훈련 및 영 문화에 헌신된, 수천에 이르는 충만한 연구소와 조직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교육받고 다시 검증받는다. 시간세계로부터 도착하는 순례자는, 연합된 이 세계들에서 언제든지 받아들여지지만, 떠나가는 졸업생은 항상 **우버사** 기슭에서 직접 **하보나**를 향해 파송된다.

우버사는, 대략 1조에 이르는 인간거주 또는 인간거주 가능 세계를 위한 영적 및 경영 본부다. **오르본톤** 수도(首都)의 영광과 장려함과 완전성은, 시_공간 창조계 가운데 어떤 경이로움보다 뛰어나다.

계획된 지방우주들 및 그 구성 부분 전체가 확립되면, 일곱 연방우주에는 5천억 개보다 약간 적은 건축양식 세계가 있게 될 것이다.

8. 에너지 통제와 규제

연방우주의 본부 구체는, 그 다양한 구역을 위한 효과적인 동력_에너지 조절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축됐는데, 연방우주를 구성하는 지방우주들을 향해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초점으로서 이바지한다. 본부 구체들은, 조직된 공간을 통해서 순환하는 물리적 에너지를 균형잡고 통제하는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규제 기능은 연방우주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수행하는데, 그들은 이 명백한 목적을 위해서 선정된 활기찬 지성 실체와 약간활기찬 지성 실체다. 이 동력 중심과 통제관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낮은 계층은 자발적이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고, 선택할 수 없으며, 기능은 매우 지성적이지만 외견상 자동적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에 내재돼 있다. 연방우주의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은, 인력세력 영역을 구성하는 30개의 에너지 체계를 지휘하고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우버사**의 동력 중심들이 경영하는 물리적_에너지 회로는, 연방우주를 한 바퀴 다 돌기까지, 9억 6,800만 년보다 약간 더 걸린다.

진화하는 에너지는 구성요소가 있으며; 무게가 있는데, 무게는 회전 속도, 질량, 및 반인력(反

training of the superuniverse.

15.7.10 (175.1) *Uversa, the headquarters of Orvonton, your superuniverse,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the seven higher universities of advanced spiritual training for ascending will creatures. Each of these seven clusters of wonder spheres consists of seventy specialized worlds containing thousands upon thousands of replet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devoted to universe training and spirit culture wherein the pilgrims of time are re-educated and re-examined preparatory to their long flight to Havona. The arriving pilgrims of time are always received on these associated worlds, but the departing graduates are always dispatched for Havona direct from the shores of Uversa.*

15.7.11 (175.2) *Uversa is the spiritual and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approximately one trillion inhabited or inhabitable worlds. The glory, grandeur, and perfection of the Orvonton capital surpass any of the wonders of the time-space creations.*

15.7.12 (175.3) *If all the projected local universes and their component parts were established, there would be slightly less than five hundred billion architectural world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8. ENERGY CONTROL AND REGULATION

15.8.1 (175.4)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uperuniverses are so constructed that they are able to function as efficient power-energy regulators for their various sectors, serving as focal points for the directionization of energy to their component local universes. They exert a powerful influence over the balance and control of the physical energies circulating through organized space.*

15.8.2 (175.5) *Further regulative functions are performed by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living and semiliving intelligent entities constituted for this express purpose. These power centers and controllers are difficult of understanding; the lower orders are not volitional, they do not possess will, they do not choose, their functions are very intelligent but apparently automatic and inherent in their highly specialized organization.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s assume direction and partial control of the thirty energy systems which comprise the gravita domain. The physical-energy circuits administered by the power centers of Uversa require a little over 968 million years to complete the encirclement of the superuniverse.*

15.8.3 (175.6) *Evolving energy has substance; it has weight, although weight is always relative, depending on revolutionary velocity, mass, and*

引力}에 항상 비례해서 달라진다. 물체의 질량은 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며; 어디든지 나타나는 에너지 속도는: 처음에 주어진 속도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질량으로 인한 감속을 빼고, 연방우주의 살아있는 에너지 통제관들의 규제 기능, 그리고 가까이에 고도로 가열되거나 무거운 전하{電荷}를 띤 본체들의 물리적 영향을 더한 것이다.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계획은, 작은 물질 단위{單位}들을 늘 만들고 부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다양한 양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억류하거나, 또는 팽창하고 방출시키는 역량을 갖고 있다.

지연시키는 영향력에 충분한 지속기간이 주어지면,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없을 때, 인력은 결국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에너지 통제관들의 반인력{反引力} 영향력 때문이고, 둘째로, 아주 뜨거운 별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아래서, 그리고 응축된 물질로 이뤄지고 큰 에너지를 가진 차가운 물체 근처의 공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서, 조직된 물질이 부서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덩어리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되고, 에너지가 균형을 깨뜨리고 물리적 동력 회로들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을 때, 공간에 있는 거대한 죽은 별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누적된 인력의 집합을 한 순간에 완전히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지나치게 물질화 하는 인력 자체의 계속적인 경향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물리 통제관들이 개입한다. 이런 충돌 사건에서 물체의 막대한 중량은,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에너지로 갑자기 변환되며, 우주의 평형을 위한 투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결국에는 큰 물리 체계들이 안정을 이루게 되고, 물리적으로 정착되며, 연방우주들의 균형이 잡히고 확립된 회로들 속으로 회전에 들어간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런 확립된 체계들에서는, 충돌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다른 격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세월 동안에는, 동력 교란과 열 변동이 전기{電氣} 형태화를 동반한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세월 동안에는, 물질이 집합하고 응축하며, 아주 절묘하게 균형 잡힌 회로들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로,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조정 또는 충돌하는 조정이 따라오며, 이것은 순환하는 에너지와 더 실질적으로 안정된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재빨리 회복시킨다. 타오르는 항성들과 우주의 흑암 섬들의 습성이 될 만한 것을 예측하는 것과 그밖에 이해하는 것은, 천상의 별 관찰자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우주 평형을 다스리는 법칙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고 우주 안정성에 대해 많이 예측할 수 있다. 실용적으로, 우리의 예측은 신뢰할 만한

antigravity. Mass in matter tends to retard velocity in energy; and the anywhere-present velocity of energy represents: the initial endowment of velocity, minus retardation by mass encountered in transit, plus the regulatory function of the living energy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 and the physical influence of near-by highly heated or heavily charged bodies.

15:8.4 (175.7) The universal plan for the maintenance of equilibrium between matter and energy necessitates the everlasting making and unmaking of the lesser material units.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the ability to condense and detain, or to expand and liberate, varying quantities of energy.

15:8.5 (175.8) Given a sufficient duration of retarding influence, gravity would eventually convert all energy into matter were it not for two factors: First, because of the antigravity influences of the energy controllers, and second, because organized matter tends to disintegrate under certain conditions found in very hot stars and under certain peculiar conditions in space near highly energized cold bodies of condensed matter.

15:8.6 (176.1) When mass becomes overaggregated and threatens to unbalance energy, to deplete the physical power circuits, the physical controllers intervene unless gravity's own further tendency to overmaterialize energy is defeated by the occurrence of a collision among the dead giants of space, thus in an instant completely dissipating the cumulative collections of gravity. In these collisional episodes enormous masses of matter are suddenly converted into the rarest form of energy, and the struggle for universal equilibrium is begun anew. Eventually the larger physical systems become stabilized, become physically settled, and are swung into the balanced and established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Subsequent to this event no more collisions or other devastating catastrophes will occur in such established systems.

15:8.7 (176.2) During the times of plus energy there are power disturbances and heat fluctuations accompanied by electrical manifestations. During times of minus energy there are increased tendencies for matter to aggregate, condense, and to get out of control in the more delicately balanced circuits, with resultant tidal or collisional adjustments which quickly restore the balance between circulating energy and more literally stabilized matter. To forecast and otherwise to understand such likely behavior of the blazing suns and the dark islands of space is one of the tasks of the celestial star observers.

15:8.8 (176.3) We are able to recognize most of the laws governing universe equilibrium and to predict much pertaining to universe stability. Practically,

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행태의 법칙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어떤 힘과 항상 대면하게 된다. 우리가 **낙원**에서 밖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낙원 통치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경계선 너머를 지나갈 때, 우리는 확립된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문학상 체계들의 물리적 현상을 독자적으로 취급해온 관측과 관련하여 획득된 체험에 따라서, 계산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직면한다. 심지어 일곱 연방우주 영역에서도 우리는 힘 작용과 에너지 반응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작용과 반응은 우리 영토 전체에 충만하고,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 전반에 걸쳐서 통합된 평형 상태로 확장돼 있다.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우리는 **절대자**들과 체험 **신격**들의 심오한 현존_실행의 매우 정확한 특질인, 변화하는 현상과 예측할 수 없는 현상에 점점 더 확실하게 부딪힌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 전면통제를 암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오르본톤 연방우주는 지금 외견상 쇠약해지고 있으며; 외부 우주들은 전례 없는 미래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중앙 **하보나** 우주는 영원히 안정돼 있다. 인력과 열의 부재가 (차가움) 물질을 함께 조직하고 붙잡으며; 열과 반인력{反引力}은 물질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활기찬 동력 지휘자들과 힘 조직가들은, 우주를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끝없는 변형을 특별하게 통제하고 지성적으로 지시하는 비밀장치다. 성운들은 흩어지고 항성들은 타버리고 체계들은 사라지고 행성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들은 쇠퇴하지 않는다.

9. 연방우주 회로

낙원의 보편적 회로들이 일곱 연방우주 영역에 실제로 퍼져 있다. 이 현존 회로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인력,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 그리고 영원한 **섬**의 물질 인력 등이다.

보편적 **낙원** 회로들 외에, 그리고 **절대자**들 및 체험 **신격**들의 현존_실행 외에, 연방우주 공간층에서는 오직 두 에너지_회로 분야 또는 동력 분리 즉: 연방우주 회로와 지방우주 회로가 작용한다.

연방우주 회로:

our forecasts are reliable, but we are always confronted by certain forces which are not wholly amenable to the laws of energy control and matter behavior known to us. The predictability of all physical phenomena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as we proceed outward in the universes from Paradise. As we pass beyond the borders of the personal administration of the Paradise Rulers, we are confronted with increasing inability to reck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and the experience acquired in connection with observations having exclusively to do with the physical phenomena of the near-by astronomic systems. Even in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e are living in the midst of force actions and energy reactions which pervade all our domains and extend in unified equilibrium on through all regions of outer space.

15:8.9 (176.4) The farther out we go, the more certainly we encounter those variational and unpredictable phenomena which are so unerringly characteristic of the unfathomable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and the experiential Deities. And these phenomena must be indicative of some universal overcontrol of all things.

15:8.10 (176.5)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apparently now running down; the outer universes seem to be winding up for unparalleled future activities; the central Havona universe is eternally stabilized. Gravity and absence of heat (cold) organize and hold matter together; heat and antigravity disrupt matter and dissipate energy. The living power directors and force organizers are the secret of the special control and intelligent direction of the endless metamorphoses of universe making, unmaking, and remaking. Nebulae may disperse, suns burn out, systems vanish, and planets perish, but the universes do not run down.

9.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15:9.1 (176.6) The universal circuits of Paradise do actually pervade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se presence circuits are: the personality grav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material gravity of the eternal Isle.

15:9.2 (177.1) In addition to the universal Paradise circuits and in addition to the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and the experiential Deities, there function within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only two energy-circuit divisions or power segregations: the superuniverse circuits and the local universe circuits.

15:9.3 (177.2) *The Superuniverse Circuits:*

1. **낙원의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통합하는 정보 회로. 그런 시공우주_정신 회로는 단일 연방우주에 제한돼 있다.

2. 각 연방우주에 있는, 일곱 명의 **반사하는 영**의 반사하는_봉사 회로.

3.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에게, **디비닝 톤**이 어떤 방법으로 상호연합시키고 발송하는, **신비 관찰자**들의 비밀 회로들.

4.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들**들과 상호친교하는 회로.

5. **무한한 영**의 순간적 현존.

6. **낙원**의 방송, 즉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7. 동력 중심들과 물리 통제관들의 에너지 회로.

지방우주 회로:

1. **낙원 아들**들의 증여의 영, 증여되는 세계들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서는 **미가엘**의 영.

2. **신성한 사역자**들의 회로,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 너희 세계의 **거룩한 영**.

3. 다양하게 작용하는 보조 정신_영(靈)들의 현존을 포함하여, 지방우주의 지성_사역 회로.

지방우주에 그런 영적 조화가 발전해서, 지방우주의 개별 및 혼합 회로들이 연방우주의 회로들로부터 구분될 수 없게 되면, 그런 기능 정체성과 하나 된 보살핌이 실제로 지배하게 되면, 지방우주는 빛과 생명의 정착된 회로들로 즉시 돌입하는데, 연방창조물의 완성된 합동이라는 영적 동맹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즉시 갖추게 된다. **태고 항존자**들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조건, 연방우주 동맹 안에서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안정성**. 지방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평형상태에 있어야 하며;즉각적인 별 변질기간이 끝나야 한다. 우주는 분명한 행로를 따라서 진행해야 하며;그 궤도는 안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2. **영적 충성심**. 그런 지방우주 직무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자 아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전체 지방우주의 개별 행성, 체계, 및 성좌(星座)들 사이에 조화로운 협동 상태가 이뤄져야 한다.

15:9.4 (177.3) 1. The unifying intelligence circuit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Such a cosmic-mind circuit is limited to a single superuniverse.

15:9.5 (177.4) 2. The reflective-service circuit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in each superuniverse.

15:9.6 (177.5) 3. The secret circuits of the Mystery Monitors, in some manner interassociated and routed by Divinington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15:9.7 (177.6) 4. The circuit of the intercommunion of the Eternal Son with his Paradise Sons.

15:9.8 (177.7) 5. The flash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15:9.9 (177.8) 6. The broadcasts of Paradise, the space reports of Havona.

15:9.10 (177.9) 7. The energy circuits of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15:9.11 (177.10) *The Local Universe Circuits:*

15:9.12 (177.11) 1. The bestowal spirit of the Paradise Sons, the Comforter of the bestowal worlds.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Michael on Urantia.

15:9.13 (177.12) 2. The circuit of the Divine Minister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the Holy Spirit of your world.

15:9.14 (177.13) 3. The intelligence-ministry circuit of a local universe, including the diversely functioning presence of the adjutant mind-spirits.

15:9.15 (177.14) When there develops such a spiritual harmony in a local universe that its individual and combined circuits become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the superuniverse, when such identity of function and oneness of ministry actually prevail, then does the local universe immediately swing into the settled circuits of light and life, becoming at once eligible for admission into the spiritual confederation of the perfected union of the supercreation. The requisites for admission to the councils of the Ancients of Days, membership in the superuniverse confederation, are:

15:9.16 (177.15) 1. *Physical Stability*. The stars and planets of a local universe must be in equilibrium; the periods of immediate stellar metamorphosis must be over. The universe must be proceeding on a clear track; its orbit must be safely and finally settled.

15:9.17 (177.16) 2. *Spiritual Loyalty*. There must exist a state of universal recognition of, and loyalty to, the Sovereign Son of God who presides over the affairs of such a local universe. There must have come into being a state of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individual planets, systems, and constellations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너희 지방우주는 연방우주의 정착된 물리 계층에 소속될 정도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영적 집단 회원으로 남기에는 더욱 부족한 상태에 있다. 비록 **네바돈이 우버사**에 아직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우버사**에서 **유란시아**로 직접 온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우주 정부에 속한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네바돈**의 여러 세계에 파송된다. 너희를 지휘하는 자들과 통치하는 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며; 너희 우주가 연방우주 집단의 연합된 창조계 안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큼 자격을 갖추기를 고대하고 있다.

10. 연방우주 통치자

연방우주 본부는, 시·공간 영토의 높은 영적 정부가 있는 곳이다. 연방정부의 행정 분야는, **삼위일체 위원회**에서 기원되고, 최상으로 감독하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지휘하는데, 그들은 **낙원** 권세를 가진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영**의 일곱 특별 세계, 즉 **낙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위성들에 배치된 **일곱 지존 행정가**를 통해서 연방우주들을 경영한다.

연방우주 본부는, **반사하는 영과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중간 위치로부터, 이 기이한 존재들이 자신의 엄청난 반사성을 작동시키며, 위로는 중앙우주를, 그리고 아래로는 지방우주들을 그렇게 보살핀다.

연방정부의 공동 최고 행정관인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각 연방우주를 관장한다. 연방우주 정부의 요원은, 그 행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다른 집단을 구성한다:

1. **태고 항존자들.**
2. **지혜 완성자들.**
3. **신성한 조언자들.**
4. **우주 검열관들.**
5. **강력한 사자들.**
6. **권세 높은 이들.**
7.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

세 **태고 항존자**는 10억 명의 **지혜 완성자** 단체의 직접 도움을 받는데, 30억 명의 **신성한 조언자**가 그들과 연합돼 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관**이 각 연방우주 경영에 배속돼 있다. 이 세 집단

15:9.18 (177.17) Your local universe is not even reckoned as belonging to the settled physical order of the superuniverse, much less as holding membership in the recognized spiritual family of the supergovernment. Although Nebadon does not yet have representation on Uversa, we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are dispatched to its worlds on special missions from time to time, even as I have come to Urantia directly from Uversa. We lend every possible assistance to your directors and rulers in the solution of their difficult problems; we are desirous of seeing your universe qualified for full admission into the associated creations of the superuniverse family.

10.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15:10.1 (178.1)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are the seats of the high spiritual government of the time-space domains.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government, taking origin in the Councils of the Trinity, is immediately directed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supreme supervision, beings who sit upon seats of Paradise authority and administer the superuniverses throug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stationed on the seven special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the outermost satellites of Paradise.

15:10.2 (178.2)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are the abiding places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 Reflective Image Aids. From this midway position these marvelous beings conduct their tremendous reflectivity operations, thus ministering to the central universe above and to the local universes below.

15:10.3 (178.3) Each superuniverse is presided over by three Ancients of Days, the joint chief executives of the supergovernment. In its executive branch the personnel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consists of seven different groups:

- 15:10.4 (178.4) 1. Ancients of Days.
- 15:10.5 (178.5) 2. Perfectioners of Wisdom.
- 15:10.6 (178.6) 3. Divine Counselors.
- 15:10.7 (178.7) 4. Universal Censors.
- 15:10.8 (178.8) 5. Mighty Messengers.
- 15:10.9 (178.9) 6. Those High in Authority.
- 15:10.10 (178.10) 7.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15:10.11 (178.11) The three Ancients of Days are immediately assisted by a corps of one billion Perfectioners of Wisdom, with whom are associated three billion Divine Counselors. One billion Universal Censors are attached to each

은 **협조하는 삼위일체 인격체**인 데, **낙원 삼위일체**에서 직접 신성하게 기원된다.

나머지 세 계층, 즉 **강력한 사자들**, **권세 높은 이들**,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영화롭게 된 상승한 필사자다. 이 계층 중에서 첫째는 상승 체제를 통해 올라왔고, **그랜한다**의 시대에 **하보나**를 거쳐서 지나갔다. **낙원**에 도달하고 나서, 그들은 **완결성취 단체**에 모집됐고, **낙원 삼위일체**가 받아들였으며, 그 후에 **태고 항존자들**의 숭고한 업무에 배정됐다. 등급{等級}으로 볼 때, 이 세 계층은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로 알려지는데, 이중{二重} 기원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삼위일체** 업무에 속해 있다. 그리하여 연방우주 정부의 행정 분야는,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 진화 세계 자녀를 포함할 정도로 확장됐다.

대등한 연방우주 협의회는, 앞에서 이름이 거론된 일곱 행정 집단과 다음의 구역 통치자 및 다른 지역 감독들로 구성돼 있다:

1. **완전성{完全性} 항존자{恒存者}**들 --연방우주 대구역들에 대한 통치자.
2. **최근{最近} 항존자**들 --연방우주 소구역들에 대한 지휘자.
3. **합동{合同} 항존자**들 --지방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자문가.
4. **충실{忠實} 항존자**들 --성좌 정부의 **지고자**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상담자.
5. 연방우주 정부에서 근무하게 될 기회가 있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6. 연방우주 본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영원{永遠} 항존자**들.
7. 일곱 명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일곱 반사하는 영 대변인들, 그리고 이들을 통한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대표자들.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은, 연방우주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현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개별 수용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되는 존재는: 연방우주에서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인격 현현{顯現},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 **궁극자**의 **조건적 대리인**들, **위엄자{威嚴者}**의 무명의 연락 반사자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인격을 초월한 영 대표자들이다.

창조된 존재로 구성된 모든 집단의 대표자들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three groups are Co-ordinate Trinity Personalities, taking origin directly and divinely in the Paradise Trinity.

15.10.12 (178.12) The remaining three orders,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re glorified ascendant mortals. The first of these orders came up through the ascendant regime and passed through Havona in the days of Grandfanda. Having attained Paradise, they we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subsequently assigned to the supernal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As a class, these three orders are known as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being of dual origin but now of Trinity service. Thus was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enlarged to include the glorified and perfected children of the evolutionary worlds.

15.10.13 (178.13) The co-ordinate council of the superuniverse is composed of the seven executive groups previously named and the following sector rulers and other regional overseers:

15.10.14 (179.1) 1. Perfections of Days — the rulers of the superuniverse major sectors.

15.10.15 (179.2) 2. Recents of Days — the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 minor sectors.

15.10.16 (179.3) 3. Unions of Days — the Paradise advisers to the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15.10.17 (179.4) 4. Faithfuls of Days — the Paradise counselors to the Most High rulers of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15.10.18 (179.5) 5. Trinity Teacher Sons who may chance to be on duty at superuniverse headquarters.

15.10.19 (179.6) 6. Eternals of Days who may happen to be present at superuniverse headquarters.

15.10.20 (179.7) 7. The seven Reflective Image Aids — the spokesmen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nd through them representativ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15.10.21 (179.8) The Reflective Image Aids also function as the representatives of numerous groups of beings who are influential in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but who are not, at present, for various reasons, fully acti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Embraced within this group are: the evolving superuniverse personality manifesta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the unnamed liaison reflectivators of Majeston, and the superpersonal spirit representatives of the Eternal Son.

15.10.22 (179.9) At almost all times it is possible to find

을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서 거의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연방우주의 일상적인 보살피는 작업은, 전능한 제2스라빔, 그리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집단에 속하는 다른 요원들이 수행한다. 연방우주 경영, 통제, 원조{援助}, 및 행정적 판단을 수행하는 이 놀라운 중심지의 업무에서, 보편적 생명체가 있는 모든 구체의 지성체들이, 효과적인 봉사, 현명한 경영, 사랑스런 보살핌, 그리고 공정한 심판에 관여한다.

연방우주들은 어떤 종류의 대표사절{代表使節}도 유지하지 않으며; 그들은 서로 완벽하게 격리돼 있다. 그들은 **일곱 으뜸 영**이 유지하는 **낙원 정보집배소**{情報集配所}를 통해서만 서로의 직무를 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유한 연방우주 복지를 위해서만 신성한 지혜 협의회에서 일한다. 연방우주들의 이런 격리는, 진화하는 체험적인 **지존하신 분**의 인격과_주권이 완전히 사실화됨으로 연방우주들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11. 심 의 회

완전한 전제정치와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우버사** 같은 그런 세계에서다. 연방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분야는 완전한 영역들에서 기원되며; 입법{立法}을 담당하는 분야는 진화 우주들이 개화{開花}하면서 싹튼다.

연방우주 심의회{審議會}는 본부 세계로 제한된다. 이 입법 협의회, 즉 자문하는 협의회는 일곱 원{院}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우주 협의회에 받아들여진 모든 지방우주마다, 각 원에 보낼 원주민 대표자 하나를 선출한다. 그런 지방우주의 높은 협의회가, **하보나**로 이동하도록 공인{公認}되고 **우버사**에 머물고 있는, **오르본톤**의 상승하는_순례자 졸업생 가운데서 이 대리인들을 선택한다. 평균 근무 기간은 연방우주 표준시간으로 약 100년이다.

오르본톤 행정관과 **우버사** 집회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연방우주 역사에서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행정 부서가 수행하기를 망설일만했던 어떤 충고도, 심의 기관이 내보낸 적이 전혀 없었다. 가장 온전한 일치와 실제 동의가 항상 지배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된 최고의 지혜를 진화 존재들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온전한 기원과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들과 사귀도록 한다. 여러 심의회가 연방우주 본부에 현존함, **만유의**

representatives of all groups of created beings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he routine ministering work of the superuniverses is performed by the mighty seconaphim and by other members of the vast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work of these marvelous centers of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control, ministry, and executive judgment, the intelligences of every sphere of universal life are mingled in effective service, wise administration, loving ministry, and just judgment.

15:10.23 (179.10) The superuniverses do not maintain any sort of ambassadorial representation; they are completely isolated from each other. They know of mutual affairs only through the Paradise clearinghouse maintain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ir rulers work in the councils of divine wisdom for the welfare of their own superuniverses regardless of what may be transpiring in other sections of the universal creation. This isolation of the superuniverses will persist until such time as their co-ordination is achieved by the more complete factualization of the personality-sovereignty of the evolving experiential Supreme Being.

11. THE DELIBERATIVE ASSEMBLY

15:11.1 (179.11) It is on such worlds as Uversa that the beings representative of the autocracy of perfection and the democracy of evolution meet face to face.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government originates in the realms of perfection; the legislative branch springs from the flowering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15:11.2 (179.12) The deliberative assembly of the superuniverse is confined to the headquarters world. This legislative or advisory council consists of seven houses, to each of which every local universe admitted to the superuniverse councils elects a native representative. These representatives are chosen by the high councils of such local universes from among the ascending-pilgrim graduates of Orvonton who are tarrying on Uversa, accredited for transport to Havona. The average term of service is about one hundred years of superuniverse standard time.

15:11.3 (180.1) Never have I known of a disagreement between the Orvonton executives and the Uversa assembly. Never yet, in the history of our superuniverse, has the deliberative body ever passed a recommendation that the executive division of the supergovernment has even hesitated to carry out. There always has prevailed the most perfect harmony and working agreement, all of which testifies to the fact that evolutionary beings can really attain the heights of perfected wisdom which qualifies them to consort with the personalities of perfect origin and divine nature.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의 전체적인 방대한 진화 개념에 담긴 지혜를 드러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시한다.

The presence of the deliberative assemblies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reveals the wisdom, and foreshadows the ultimate triumph, of the whole vast evolutionary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12. 최고 재판소

우리가 **우버사** 정부의 행정 및 심의{審議} 부서들을 이야기할 때, 셋째 부서, 즉 사법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는 특정한 형태의 **유란시아** 시민 정부의 유사점에서 추론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별도의 인원을 갖지는 않는다. 우리의 법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사건의 본질과 중대함에 따라서, 한 명의 **태고 항존자**, 한 명의 **지혜 완성자**, 또는 한 명의 **신성한 조언자**가 주관한다. 개인, 행성, 체계, 성좌, 또는 우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물이 제시되고, **검열관**들이 해석한다. 시간세계의 자녀들과 진화 행성들에 대한 변론은 **강력한 사자**들이 제공하는데, **강력한 사자**는 지방우주 및 지역 체계들에 대한 연방우주 정부의 공식 감시자다. 상위{上位} 정부의 입장은 **권세 높은 이들이** 대변한다. 그리고 대개 판결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 그리고 그 심의회에서 선택된 이해하는 인격체 집단이 동수{同數}로 구성하는,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에서 작성된다.

태고 항존자 법정은, 구성하는 우주 전체의 영적 판결을 위한 높은 재심{再審} 재판소다. 지방우주의 **주권자 아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높으며;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소멸을 포함하는 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고 항존자**들의 조언 또는 판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한에서만 연방정부에 종속된다. 판결하는 명령은 지방우주에서 시작되지만,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소멸을 포함하는 선고문{宣告文}은, 반드시 연방우주 본부에서 작성되고 거기서 집행된다. 지방우주 **아들**이 필사적 사람의 생존에 대해 판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태고 항존자**들만이 행정 심판석에 앉을 수 있다.

심리, 즉 증거물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태고 항존자**들 또는 그 동역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 판결은 항상 만장일치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성에 속하는 협의회들을 다루고 있다. 이 최상의 최고 법정이 내리는 판결에는 불일치가 없고 사소한 의견도 없다.

거의 예외 없이, 연방정부들은 그들 각각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존재에 대해 사법

12. THE SUPREME TRIBUNALS

15:12.1 (180.2) When we speak of executive and deliberative branches of the Uversa government, you may, from the analogy of certain forms of Urantian civil government, reason that we must have a third or judicial branch, and we do; but it does not have a separate personnel. Our courts are constituted as follows: There preside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case, an Ancient of Days, a Perfector of Wisdom, or a Divine Counselor. The evidence for or against an individual, a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universe is presented and interpreted by the Censors. The defense of the children of time and the evolutionary planets is offered by the Mighty Messengers, the official observer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to the local universes and systems. The attitude of the higher government is portrayed by Those High in Authority. And ordinarily the verdict is formulated by a varying-sized commission consisting equally of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nd a group of understanding personalities chosen from the deliberative assembly.

15:12.2 (180.3)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high review tribunals for the spiritual adjudication of all component universes. The Sovereign Sons of the local universes are supreme in their own domains; they are subject to the supergovernment only in so far as they voluntarily submit matters for counsel or adjudication by the Ancients of Days except in matters involving the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Mandates of judgment originate in the local universes, but sentences involving the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are always formulated on, and execut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The Sons of the local universes can decree the survival of mortal man, but only the Ancients of Days may sit in executive judgment on the issues of eternal life and death.

15:12.3 (180.4) In all matters not requiring trial, the submission of evidence, the Ancients of Days or their associates render decisions, and these rulings are always unanimous. We are here dealing with the councils of perfection. There are no disagreements nor minority opinions in the decrees of these supreme and superlative tribunals.

15:12.4 (180.5) With certain few exceptions the supergovernments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things and all beings in their respective domains.

권을 행사한다. 연방우주 당국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는 발생되지 않는데, 이는 **태고 항존자들**, 그리고 관계된 연방우주의 운명을 **낙원**에서 관장하는 **으뜸 영**의 일치된 의견을, 연방우주 당국이 대표하기 때문이다.

There is no appeal from the rulings and decisions of the superuniverse authorities since they represent the concurred opinion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at Master Spirit who, from Paradise, presides over the destiny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13. 구역 정부

대구역은 한 연방우주의 약 10분의 1로 이뤄지며, 100개의 소구역, 10,000개의 지방우주, 약 1,000억 개의 인간 거주 가능 세계로 구성된다. 세 명의 **완성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이 대구역을 경영한다.

완성 항존자들의 법정은, 그들이 그 영역에 대한 영적(靈的) 심판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태고 항존자**의 법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이 대구역 정부의 업무는, 광범한 창조물의 지적(知的) 상태에 주로 관여한다. 대구역은, **태고 항존자**의 법정에 보고하기 위해서, 영역의 영적 경영 또는 **낙원 통치자**들의 필사자_상승 계획에 대한 외부작업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상적이고 경영적인 본성을 갖는 연방우주 중요성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보류하고 판결하며 시행하고 기록한다. 대구역 정부 요원은 연방우주의 요원과 다르지 않다.

우버사의 장엄한 위성들이 **하보나**를 향한 너희의 최종 영적 준비에 관여하는 것처럼, 제5 U_대구역의 70개 위성도 너희 연방우주의 지적 훈련과 발달에 기여한다. 전체 **오르본톤**에서, 영원한 생애를 향하여 더욱 진보하도록 시간세계의 필사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현명한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에 대한 이 훈련 대부분은, 70개 연구(研究) 세계에서 수행된다.

소구역 정부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가 관장한다. 그들의 행정부는, 구성하고 있는 지방우주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統制), 통합, 안정, 및 경영의 일상적 협조에 주로 관련된다. 각 소구역마다 100개의 지방우주, 1만 개의 성좌, 100만 개의 체계, 또는 약 10억 개에 달하는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한다.

소구역 본부 세계는 **총괄 물리 통제관**의 거대한 집결지(集結地)다. 이 본부 세계들은, 연방우주로 들어가게 하는 학교인, 7개의 훈육 구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구체들은 온갖 우주에 관한 물리적 및 경영적 지식을 위한 훈련 중심지다.

13. THE SECTOR GOVERNMENTS

15:13.1 (181.1) A major sector comprises about one tenth of a superuniverse and consists of one hundred minor sectors, ten thousand local universes, about one hundred billion inhabitable worlds. These major sectors are administered by three Perfection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15:13.2 (181.2) The courts of the Perfections of Days are constituted much as are those of the Ancients of Days except that they do not sit in spiritual judgment upon the realms. The work of these major sector governments has chiefly to do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of a far-flung creation. The major sectors detain, adjudicate, dispense, and tabulate, for reporting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ll matters of superuniverse importance of a routine and administrative nature which are not immediately concerned with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realms or with the outworking of the mortal-ascension plans of the Paradise Rulers. The personnel of a major sector government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superuniverse.

15:13.3 (181.3) As the magnificent satellites of Uversa are concerned with your final spiritual preparation for Havona, so are the seventy satellites of Umajor the fifth devoted to your superuniverse intellectual training and development. From all Orvonton, here are gathered together the wise beings who labor untiringly to prepare the mortals of time for their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career of eternity. Most of this training of ascending mortals is conducted on the seventy study worlds.

15:13.4 (181.4) The minor sector governments are presided over by three Recents of Days. Their administration is concerned mainly with the physical control, unification, stabilization, and routine co-ordin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ponent local universes. Each minor sector embraces as many as one hundred local universes, ten thousand constellations, one million systems, or about one billion inhabitable worlds.

15:13.5 (181.5) Minor sector headquarters worlds are the grand rendezvou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surrounded by the seven instruction spheres which constitute the entrance schools of the superuniverse and are the centers of training for physical and administrative knowledge concerning

소구역{小區域} 정부 경영자들은 대구역 통치자들의 직접 관할권 아래에 있다. **최근 항존자**들은, 관측된 모든 보고를 받고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 **삼위일체** 관찰자 및 자문가로서 머물고 있는 **합동 항존자**로부터, 그리고 성좌 본부에 있는 **지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 비슷하게 배속된 **충실 항존자**로부터 연방우주로 올라온 모든 충고를 조화시킨다. 그런 모든 보고서는 대구역에 있는 **완성 항존자**에게 발송되고, 그 후에는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전달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체제는 지방우주 성좌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지역 체계 본부에는 **삼위일체** 대리인{代理人}이 없다.

14. 일곱 연방우주의 목적

일곱 연방우주의 진화에는, 일곱 가지 주요 목적이 펼쳐지고 있다. 연방우주 진화에서 각각의 주요 목적은,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에서만 가장 충분히 표현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연방우주는 특별한 기능과 독특한 본성을 갖는다.

너희 지방우주가 소속된, 일곱째 연방우주 **오르본톤**은, 주로 그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에게 엄청난 애김없이 자비로운 보살핌을 베푸는 것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자비로 부드러워지면서 정의가 지배하고, 인내로 조절되면서 능력이 통치하는 방법 때문에 유명하고, 한편 영원한 안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오르본톤**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주 예증이다.

아무튼, **오르본톤**에 제시되는 진화의 목적의 참된 본질에 대한 우리 생각을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연합된 여섯 연방창조물에 명시된 시공우주 진화의 독특한 여섯 가지 목적이, 여기서 하나의 전체적_의미로서 상호연결되고 있음을 이 연방창조물에서 느낀다는 것이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진화되고 인격화가 완성된 **지존자 하나님**이 먼 훗날에, **우버사**로부터, 그때 달성된 전능한 주권적 권능의 모든 체험적 주권으로, 완성된 일곱 연방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때때로 어렵짐작 해왔다.

오르본톤이 본질적으로 독특하고 개별 운명을 갖는 것처럼, **오르본톤**과 관계된 여섯 개의 각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3.6 (181.6) The administrators of the minor sector governments are under the immediate jurisdiction of the major sector rulers. The Recents of Days receive all reports of observations and co-ordinate all recommendations which come up to a superuniverse from the Unions of Days who are stationed as Trinity observers and advisers on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s and from the Faithfuls of Days who are similarly attached to the councils of the Most Highs at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All such reports are transmitted to the Perfections of Days on the major sectors, subsequently to be passed on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Thus the Trinity regime extends from the constellations of the local universes up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do not have Trinity representatives.

14. PURPOS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5:14.1 (181.7) There are seven major purposes which are being unfolded in the evolu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major purpose in superuniverse evolution will find fullest expression in only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refore does each superuniverse have a special function and a unique nature.

15:14.2 (182.1)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one to which your local universe belongs, is known chiefly because of its tremendous and lavish bestowal of merciful ministry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It is renowned for the manner in which justice prevails as tempered by mercy and power rules as conditioned by patience, while the sacrifices of time are freely made to secure the stabilization of eternity. Orvonton is a universe demonstration of love and mercy.

15:14.3 (182.2) It is, however, very difficult to describe our conception of the true nature of the evolutionary purpose which is unfolding in Orvonton, but it may be suggested by saying that in this supercreation we feel that the six unique purposes of cosmic evolution as manifested in the six associated supercreations are here being interassociated into a meaning-of-the-whole; and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have sometimes conjectured that the evolved and finished personalization of God the Supreme will in the remote future and from Uversa rule the perfected seven superuniverses in all the experiential majesty of his then attained almighty sovereign power.

15:14.4 (182.3) As Orvonton is unique in nature and individual in destiny, so also is each of its six

연방우주 역시 그렇다. 아무튼 **오르본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많이 계시되지 않았으며, **오르본톤** 생애 중에 계시되지 않은 이 특색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른 어떤 연방우주에서 가장 완성된 표현을 찾게 된다. 연방우주 진화의 일곱 가지 목적이 전체 연방우주 전반에 걸쳐서 유효하지만, 각 연방창조물은 이 목적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가장 충분한 표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연방우주 목적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이 계시될 것이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너희는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 전체는 끝없는 창조를 얼핏 훑어본 것에 불과하며, 너희 세계와 지역 체계는 그 창조의 일부분이다.

너희의 세계는 **유란시아**라고 불리며, **사타니아** 행성 집단, 즉 **사타니아** 체계에서 606_번이다. 이 체계에는, 현재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있고, 200개 이상의 추가 행성이 어떤 미래 시기에 인간거주 세계가 되도록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다.

사타니아에는 **예루셈**이라고 불리는 본부 세계가 있고, 체계 번호는 **노라티아덱** 성좌 안에서 24_번이다. 너희의 **노라티아덱** 성좌는 100개의 지역 체계로 구성돼 있고, **에덴시아**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노라티아덱**은 **네바돈** 우주에서 70_번이다. **네바돈** 지방우주는 100개의 성좌로 구성돼 있고, **살빙톤**이라고 알려진 수도를 갖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엔사** 소구역 안에서 84_번이다.

엔사 소구역은 100개의 지방우주로 구성돼 있고, 제3 U_소구역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수도를 갖고 있다. 이 소구역은 **스프랜돈** 대구역에서 3_번이다. **스프랜돈**은 100개의 소구역으로 구성돼 있고, 제5 U_대구역이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광우주의 일곱째 부분인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다섯째 대구역이다. 너희는 온갖 우주의 조직과 경영의 짜임새 안에서 너희 행성의 위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

너희 세계인 **유란시아**의 광우주 번호는 5,342,482,337,666_번이다. 이것은 **우버사와 낙원**에 등록된 번호, 즉 인간거주 세계들에 대한 목록에서 너희의 번호다. 나는 물리적_구체의 등록 번호를 알지만, 그것은 인간 정신에게 실제로 별 의미 없는 그런 특이한 크기에 해당한다.

너희의 행성은 거대한 시공우주의 일원이며; 너희는 거의 무한한 세계들의 집단에 속해 있고, 전체 실존 안에서 마치 유일한 인간거주 세계인 것처럼, 정확하게 경영되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있다.

[**우버사**에서 온, **우주 검열관**이 제시했음]

associated superuniverses. A great deal that is going on in Orvonton is not, however, revealed to you, and of these unrevealed features of Orvonton life, many are to find most complete expression in some other superuniverse. The seven purposes of superuniverse evolution are operative throughout all seven superuniverses, but each supercreation will give fullest expression to only one of these purpose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se superuniverse purposes, much that you do not understand would have to be revealed, and even then you would comprehend but little. This entire narrative presents only a fleeting glimpse of the immense creation of which your world and local system are a part.

15:14.5 (182.4) Your world is called Urantia, and it is number 606 in the planetary group, or system, of Satania. This system has at present 619 inhabited worlds, and more than two hundred additional planets are evolving favorably toward becoming inhabited worlds at some future time.

15:14.6 (182.5) Satania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Jerusem, and it is system number twenty-four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Your constellation, Norlatiadek, consists of one hundred local systems and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Edentia. Norlatiadek is number seventy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consists of one hundred constellations and has a capital known as Salvington. The universe of Nebadon is number eighty-four in the minor sector of Ensa.

15:14.7 (182.6) The minor sector of Ensa consists of one hundred local universes and has a capital called Uminor the third. This minor sector is number three in the major sector of Splandon. Splandon consists of one hundred minor sectors and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Umajor the fifth. It is the fifth maj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Thus you can locate your planet in the scheme of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4.8 (182.7) The grand universe number of your world, Urantia, is 5,342,482,337,666. That is the registry number on Uversa and on Paradise, your number in the catalogue of the inhabited worlds. I know the physical-sphere registry number, but it is of such an extraordinary size that it is of little practical significance to the mortal mind.

15:14.9 (183.1) Your planet is a member of an enormous cosmos; you belong to a well-nigh infinite family of worlds, but your sphere is just as precisely administered and just as lovingly fostered as if it were the only inhabited world in all existence.

15:14.10 (183.2) [Presented by a Universal Censor hailing from Uversa.]

제16편. 일곱 으뜸 영

⇨ 015

유란시아 책

017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6편
일곱 으뜸 영

섹션

소개

1. 삼중 신격에 대한 관계
2.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3. 으뜸 영의 정체성과 다양성
4. 으뜸 영의 속성과 기능
5. 피조물에 대한 관계
6. 시공우주 정신
7. 도덕, 미덕, 및 인격
8. 유란시아 인격
9. 인간 의식의 실체

PAPER 16

THE SEVEN MASTER SPIRITS

SECTIONS

Introduction

1. Relation to Triune Deity
2. Relation to the Infinite Spirit
3.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Master Spirits
4.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aster Spirits
5. Relation to Creatures
6. The Cosmic Mind
7. Morals, Virtue, and Personality
8. Urantia Personality
9. Reality of Human Consciousness

소개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은,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체들이다. **무한한 영**은, **신격**의 세 인격자라는 실제 실존에 수학적으로 내재된 연합 가능성을, 자기_복제{複製}라는 이 칠중 창조 행위에서 다 소모시켰다. 더 많은 숫자의 **으뜸 영**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창조했겠지만, 정확하게 일곱 가지 연합 가능성만 있고, 세 **신격**에게는 오직 일곱 가지 가능성만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가 왜 광범한 일곱 구획으로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며, 7이라는 숫자가 왜 그 조직과 경영에 기본적으로 토대를 이루는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일곱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모습에서 기원됐고, 이로부터 개별 특질이 나왔다:

1. 만유의 아버지.

INTRODUCTION

16:0.1 (184.1)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are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n this sevenfold creative act of self-duplication the Infinite Spirit exhausted the associative possibilities mathematically inherent in the factual existence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Had it been possible to produce a larger number of Master Spirits, they would have been created, but there are just seven associative possibilities, and only seven, inherent in three Deities. And this explains why the universe is operated in seven grand divisions, and why the number seven is basically fundamental in its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6:0.2 (184.2) The Seven Master Spirits thus have their origin in, and derive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the following seven likenesses:

16:0.3 (184.3) 1. The Universal Father.

2. 영원한 아들.

16:0.4 (184.4) 2. The Eternal Son.

3. 무한한 영.

16:0.5 (184.5) 3. The Infinite Spirit.

4. 아버지와 아들.

16:0.6 (184.6) 4. The Father and the Son.

5. 아버지와 영.

16:0.7 (184.7) 5. The Father and the Spirit.

6. 아들과 영.

16:0.8 (184.8) 6. The Son and the Spirit.

7. 아버지와 아들과 영.

16:0.9 (184.9) 7. The Father, Son, and Spirit.

으뜸 영들이 창조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조처를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외견상 그들은 무한한 영이 직접 활동함으로써 실존하게 됐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 그들의 기원에 참여하셨다고 분명하게 배웠다.

16:0.10 (184.10)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ac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creation of the Master Spirits. Apparently they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personal acts of the Infinite Spirit, but we have been definitely instructed that both the Father and the Son participated in their origin.

영 성품과 본성에서 낙원의 이 일곱 영은 하나처럼 존재하지만, 다른 모든 정체성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며, 연방우주들에서 그들이 활동한 결과는, 각각의 개별 차이가 반드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다. 광우주의 일곱 부분에 대한 이후계획 전체는--그리고 심지어 외부 공간의 서로 연관된 부분들조차, 최상의 궁극적인 감독을 하는, 이 일곱 으뜸 영의 영적이지 않은 다른 다양성에 따라서 조절돼 왔다.

16:0.11 (184.11) In spirit character and nature these Seven Spirits of Paradise are as one, but in all other aspects of identity they are very unlike, and the results of their functioning in the superuniverses are such that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each are unmistakably discernible. All the afterplans of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 and even the correlative segments of outer space — have been conditioned by the other-than-spiritual diversity of these Seven Master Spirits of supreme and ultimate supervision.

으뜸 영들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그들의 특유한 분야는, 일곱 연방우주를 중심에서 감독하는 것이다. 각각의 으뜸 영은 거대한 힘_초점 본부를 유지하는데, 이 본부는 낙원 주변지역을 서서히 돌고 있으며, 직접 감독하는 연방우주의 맞은편에, 그리고 특화된 그 동력(動力)을 통제하고 부분 에너지를 분배하는 낙원 초점에, 항상 자리를 유지한다. 어떤 한 연방우주의 방사(放射) 형태 경계선이든지, 감독하는 으뜸 영의 낙원 본부에 실제로 모아진다.

16:0.12 (184.12) The Master Spirits have many functions, but at the present time their particular domain is the central supervis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Master Spirit maintains an enormous force-focal headquarters, which slowly circulates around the periphery of Paradise, always maintaining a position opposite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and at the Paradise focal point of its specialized power control and segmental energy distribution. The radial boundary lines of any one of the superuniverses do actually converge at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1. 삼중 신격에 대한 관계

공동 창조주, 즉 무한한 영은, 분화되지 않은 신격이 삼중(三重) 인격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 삼중 신격 인격화는 개별로 또는 연합해서 표현할 가능성으로 볼 때, 내재적으로 칠중(七重)이며; 따라서, 지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들을 창조하려는 차후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당연히 표현하는데, 일곱 으뜸 영의 인격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격의 삼중 인격화를 절대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됐고, 한편 일곱 으뜸 영의 출현(出現)을 준절대 필연성으로 보게 됐다.

1. RELATION TO TRIUNE DEITY

16:1.1 (185.1) The Conjoint Creator, the Infinite Spirit, is necessary to the completion of the triune personalization of undivided Deity. This threefold Deity personalization is inherently sevenfold in possibility of individual and associative expression; hence the subsequent plan to create universes inhabited by intelligent and potentially spiritual beings, duly expressiv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made the personaliz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escapable. We have come to speak of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as the *absolute inevitability*, while we have come to look upon the appearance of the Seven Master

일곱 으뜸 영이 삼중 신격을 표현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칠중 신격의 영원한 초상{肖像}, 즉 언제나 실존하는, 신격의 세 인격자가 활동하고 연합하는 기능이다. 이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어떤 이중 연합체든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행동할 때, 그들은 7_번 으뜸 영을 통해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시지만, **삼위일체**로서는 아니다. **으뜸 영**들은, 단독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가능한 신격 역할 전체 혹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 또는 여러 역할을 대표하지만, 집단을, 즉 **삼위일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7_번 으뜸 영은 **낙원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직접 활동하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지존하신 분**을 위해서 *친히*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일곱 으뜸 영**이 그들 개인의 권능과 연방우주 권세를 갖는 각자의 자리를 비우고, **낙원 신격**의 삼중 현존 안에서 **공동 행위자** 주변에 모이게 되면, 그들은 그때 거기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우주들에서, 분화되지 않은 신격의--곧 **삼위일체**의-- 기능적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집단으로 대행한다. 신격의 원초적인 칠중 표현에 대한 그런 **낙원** 합동은, **지존성** 안에서 그리고 **궁극** 안에서, 영원한 세 신격의 각 속성 및 입장 전체를 실제로 포함하는데, 글자 그대로 둘러싸고 있다. **일곱 으뜸 영**은, 실용적{實用的} 의향과 목적 전부에 대해, 그때 거기서, 총괄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총괄우주 안에서, **최상급_궁극자**의 기능적 영토를 둘러싼다.

우리가 식별하는 한, 이 **일곱 영**은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자의 신성한 활동과 연합돼 있으며, **절대자**의 영원한 세 국면에서 활동하는 현존들과 직접 연합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연합했을 때 유한한 실행 영역이라고 개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으뜸 영**들은 **낙원 신격**들을 대변한다. 이 영역은, 궁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대부분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신성한 **아들**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영원한 원본 아들**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무한하고 신성한 영**은, **일곱 으뜸 영** 그리고 그들의 연합된 영 집단들의 경로를 통해서 드러난다. 가장 중심에서 **무한한 영**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낙원**에 도달한 모든 존재가 그의 인격 및 구별된 현존을 즉각 식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 그러나 중앙우주에 도달한 모든 존재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 즉 새롭게 도착한 공간 순례자의 고향인 그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으뜸 영**과 즉각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Spirits as the *subabsolute inevitability*.

16:1.2 (185.2) While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hardly expressive of *threefold* Deity, they are the eternal portrayal of *sevenfold* Deity, the active and associative functions of the three ever-existent persons of Deity. By and in and through these Seven Spirits,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or the Infinite Spirit, or any dual association, is able to function as such. When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ct together, they can and do function through Master Spirit Number Seven, but not as the Trinity. The Master Spirits singly and collectively represent any and all possible Deity functions, single and several, but not collective, not the Trinity. Master Spirit Number Seven is personally nonfunctional with regard to the Paradise Trinity, and that is just why he can function *personally* for the Supreme Being.

16:1.3 (185.3) But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vacate their individual seats of personal power and superuniverse authority and assemble about the Conjoint Actor in the triune presence of Paradise Deity, then and there are they collectively representative of the functional power, wisdom, and authority of undivided Deity — the Trinity — to and in the evolving universes. Such a Paradise union of the primal sevenfold expression of Deity does actually embrace, literally encompass, all of every attribute and attitude of the three eternal Deities in Supremacy and in Ultimacy.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the Seven Master Spirits do, then and there, encompass the functional domain of the Supreme-Ultimate to and in the master universe.

16:1.4 (185.4) As far as we can discern, these Seven Spirits are associated with the divine activities of the three eternal persons of Deity; we detect no evidence of direct association with the functioning presences of the three eternal phases of the Absolute. When associated, the Master Spirits represent the Paradise Deities in what may be roughly conceived as the finite domain of action. It might embrace much that is ultimate but *not* absolute.

2. RELATION TO THE INFINITE SPIRIT

16:2.1 (185.5) Just as the Eternal and Original Son is revealed through the persons of th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divine Sons, so is the Infinite and Divine Spirit revealed through the channe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ir associated spirit groups. At the center of centers the Infinite Spirit is approachable, but not all who attain Paradise are immediately able to discern his personality and differentiated presence; but all who attain the central universe can and do immediately commune wit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one presiding over the superuniverse from

낙원 아버지는 온갖 우주에게 오직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며, 한편 **낙원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행동하신다. **낙원**과 **하보나** 바깥에서, **무한한 영**은 오직 **일곱 으뜸 영**의 소리로 말씀하신다.

무한한 영은 **낙원_하보나** 체계의 경계선 내에서 몸소 **현존하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영**이 몸소 영으로 **현존하심**은 **일곱 으뜸 영** 중에서 한 분이 발휘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발휘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또는 어떤 개인의 경우든지, **제3 근원 및 중심**의 연방우주 영 현존은, 그 창조 구획을 감독하는 **으뜸 영**의 독특한 본성에 따라서 좌우된다. 역으로 말해서, 영 힘 및 지성의 혼합된 계통들은, **일곱 으뜸 영**을 거쳐서 **신격의 제3 인격**자를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일곱 으뜸 영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지존적_궁극적 속성들을 집단으로 부여받았다. 이 재능을 각자가 개별로 갖는 반면, 오직 집단으로 그들은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遍在性)이라는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없으며; 개체로서, 지존성과 궁극성의 이 권능을 행사할 때, 직접 감독하는 연방우주에 각자 개인적으로 제한돼 있다.

공동 행위자의 신성과 인격에 관해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일곱 으뜸 영**에게도 동일하게 온전히 적용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성한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본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광우주의 일곱 부분에 **무한한 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영**의 이름들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일곱 분의 공동 집단에 적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모든 준절대 수준에서는, 그들이 집단으로 **공동 행위자**와 하나다.

3. 으뜸 영의 정체성과 다양성

일곱 으뜸 영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격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호를 사용해서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화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비슷하지만, 삼중 **신격**의 일곱 가지 가능한 연합체에 대한 근본적 표현에서는, 본성에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이 본성의 다양성이 연방우주 운영에 관한 그들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 **일곱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_ **번 으뜸 영** 특별한 방식으로, 이 **영**은 **낙원**

which the newly arrived space pilgrim hails.

16:2.2 (186.1)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Paradise Father speaks only through his Son, while he and the Son conjointly act only through the Infinite Spirit.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the Infinite Spirit *speaks* only by the voic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3 (186.2) The Infinite Spirit exerts an influence of *personal presence* within the confine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elsewhere his personal spirit presence is exerted by and throug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refore is the superuniverse spirit presenc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any world or in any individual conditioned by the unique nature of the supervisory Master Spirit of that segment of creation. Conversely, the combined lines of spirit force and intelligence pass inward to the Third Person of Deity by wa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4 (186.3)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collectively endowed with the supreme-ultimate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ile each one individually partakes of this endowment, only collectively do they disclose the attributes of omnipotence,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No one of them can so function universally; as individuals and in the exercise of these powers of supremacy and ultimacy each is personally limited to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16:2.5 (186.4) All of everything which has been told you concerning the divinity and personality of the Conjoint Actor applies equally and fully to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so effectively distribute the Infinite Spirit to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their divine endowment and in the manner of their differing and individually unique natures. It would therefore be proper to apply to the collective group of seven any or all of the names of the Infinite Spirit. Collectively they are one with the Conjoint Creator on all subabsolute levels.

3.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MASTER SPIRITS

16:3.1 (186.5)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describable beings, but they are distinctly and definitely personal. They have names, but we elect to introduce them by number. As primary personalization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akin, but as primary expressions of the seven possible associations of triune Deity, they are essentially diverse in nature, and this diversity of nature determines their differential of superuniverse conduct. These Seven Master Spirit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16:3.2 (186.6) *Master Spirit Number One.* In a

아버지를 직접 대표한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독특하고 유능한 현현{顯現}이다. 그는 **디비닝톤**에 있는 **인격화된 조율사들의 학부**를 관장하는 존재인 **신비 관찰자**들의 우두머리의 긴밀한 동역자이고 숭고한 자문가다. **일곱 으뜸 영**의 모든 연합체들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대변{代辯}하는 이는 언제나 **1_번 으뜸 영**이다.

이 **영**은 첫째 연방우주를 관장하며,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화의 신성한 본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한편, 무엇보다 성품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닮은 듯하다. 그는 첫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일곱 반사하는 영**과 항상 직접 접촉한다.

2_번 으뜸 영. 이 **영**은 전체 창조 중에서 첫 태생인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품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연히 개인으로서 거주{居住} 우주에 있게 되거나, 기쁨이 넘치는 비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경우든지, 그들 가운데 모든 계층과 항상 긴밀하게 연합한다. 그는 **일곱 으뜸 영**의 모든 집회에서 항상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고 대신한다.

이 **영**은 2_번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휘하며, **영원한 아들**이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대한 영토를 다스린다. 그는 둘째 연방우주 수도에 위치한 일곱 명의 **반사하는 영**과 항상 접촉한다.

3_번 으뜸 영. 이 **영** 인격체는 특별히 **무한한 영**을 닮았고, **무한한 영**의 고위{高位} 인격체 가운데 다수의 동향과 업무를 지휘한다. 그는 이들의 집회를 주재{主宰}하고,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독자적으로 기원되는 모든 인격체와 긴밀하게 연합한다. **일곱 으뜸 영**이 협의회에 참여할 때, **3_번 으뜸 영**이 **무한한 영**을 항상 대변한다.

이 **영**은 3_번 연방우주를 책임지며,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지역의 직무를 경영한다. 그는 셋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4_번 으뜸 영. **아버지**와 **아들**의 혼합된 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으뜸 영**은 **일곱 으뜸 영** 협의회에서 **아버지_아들** 정책과 과정에 관해 결정하는 영향력을 미친다. 이 **영**은 **무한한 영**에 이미 도달하고, 그리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후보자가 된, 상승하는 존재들에 대한 최상급 지휘자 및 자문가{諮問家}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기원되는 인격체들로 이뤄진 거대한 집단을 보살핀다. **일곱 으뜸 영**의 연합체에서 **아버지**

special manner this Spirit is the direct representation of the Paradise Father. He is a peculiar and efficient manifestation of the power, love, and wisdom of the Universal Father. He is the close associate and supernal adviser of the chief of Mystery Monitors, that being who presides over the College of Personalized Adjusters on Divinington. In all associ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One who speaks for the Universal Father.

16:3.3 (186.7) This Spirit presides over the first superuniverse and, while unfailingly exhibiting the divine nature of a primary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eems more especially to resemble the Universal Father in character.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rst superuniverse.

16:3.4 (187.1) *Master Spirit Number Two.* This Spirit adequately portrays the matchless nature and charming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He is always in close association with all orders of the Sons of God whenever they may happen to be in the residential universe as individuals or in joyous conclave. In all the assembli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e always speaks for, and in behalf of, the Eternal Son.

16:3.5 (187.2) This Spirit directs the destinies of superuniverse number two and rules this vast domain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situated at the capital of the second superuniverse.

16:3.6 (187.3) *Master Spirit Number Three.* This Spirit personality especially resembles the Infinite Spirit, and he directs the movements and work of many of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He presides over their assemblies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all personalities who take exclusiv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council, it is Master Spirit Number Three who always speaks for the Infinite Spirit.

16:3.7 (187.4) This Spirit is in charge of superuniverse number three, and he administers the affairs of this segment much as woul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third superuniverse.

16:3.8 (187.5) *Master Spirit Number Four.* Partaking of the combined nature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is Master Spirit is the determining influence regarding Father-S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is Spirit is the chief director and adviser of those ascendant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Infinite Spirit and thus have become candidates for seeing the Son and the Father. He fosters that

지와 **아들**을 대변할 필요가 있게 될 때, 발표하는 이는 항상 4_번 으뜸 영이다.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속성들로 이뤄진 독특한 연합에 따라서, 광우주 가운데 넷째 지역을 돌본다. 그는 넷째 연방우주 본부의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직접 접촉한다.

5_번 으뜸 영.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성품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이 신성한 인격체는,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으로 알려진 거대한 집단의 존재들에 대한 자문가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공동 행위자** 안에서 지원되는 모든 인격체를 돌본다. **일곱 으뜸 영** 회의회에서, **아버지 영**의 입장이 의문일 때, 5_번 으뜸 영이 항상 발언한다.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혼합된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다섯째 연방우주의 복지(福祉)를 감독한다. 그는 다섯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6_번 으뜸 영.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혼합된 성품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과 영이 중앙우주에서 만남으로써 피조물이 공동으로 창조될 때마다, 이 으뜸 영이 그들의 자문가이며; **일곱 으뜸 영** 회의회가 있을 경우에,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6_번 으뜸 영이 대답한다.

이 영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연방우주의 직무를 지휘한다. 그는 여섯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7_번 으뜸 영. 일곱째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을 특이하게 똑같이 묘사한다. 삼중으로 지원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문가를 돌보는 **일곱째 영**은, **하보나**의 상승하는 순례자들 전체에 대한 자문가 및 지휘자이기도 한데, 그 하위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혼합된 보살핌을 통해 영광의 궁전에 이미 도달한 자다.

일곱째 으뜸 영이 **낙원 삼위일체**를 유기적으로 대행하지는 않지만; 그의 인격적 및 영적 본성은, **공동 행위자**가 무한한 세 인격자를 똑같은 비율로 나타낸 초상이고, 세 분의 **신격** 합동이 바로

enormous group of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the Father and the Son.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represent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associ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our who speaks.

16:3.9 (187.6) This Spirit fosters the four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his peculiar association of the attribut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headquarters of the fourth superuniverse.

16:3.10 (187.7) Master Spirit Number Five. This divine personality who exquisitely blends th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adviser of that enormous group of beings known as the power directors,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This Spirit also fosters all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the Father and the Conjoint Acto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hen the Father-Spirit attitude is in question,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ive who speaks.

16:3.11 (187.8) This Spirit directs the welfare of the fifth superuniverse in such a way as to suggest the combined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fth superuniverse.

16:3.12 (187.9) Master Spirit Number Six. This divine being seems to portray the combined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Whenever the creatures jointly created by the Son and the Spirit forgather in the central universe, it is this Master Spirit who is their adviser; and wheneve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becomes necessary to speak conjointly fo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it is Master Spirit Number Six who responds.

16:3.13 (188.1) This Spirit directs the affai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16:3.14 (188.2) Master Spirit Number Seven. The presiding Spiri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is a uniquely equal portray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Seventh Spirit, the fostering adviser of all triune-origin beings, is also the adviser and director of all the ascending pilgrims of Havona, those lowly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courts of glory through the combined ministry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16:3.15 (188.3) The Seventh Master Spirit is not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t is a known fact that his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is the Conjoint Actor's portraiture in equal

낙원 삼위일체요, 그와 같은 그들의 기능은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적 및 영적 본성의 근원 *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곱째 으뜸 영**은 진화하는 **지존자**의 영 인격자에 대한 개인적 및 유기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는 **으뜸 영** 협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통합된 인격적 입장에 대해서 표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존하신 분**의 영적 입장을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동하는 이는 **7_번 으뜸 영**이다. 그는 **일곱 으뜸 영**으로 이뤄진 **낙원** 협의회 의장직을 그렇게 선천적으로 감당하게 된다.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아무도 **낙원 삼위일체**를 유기적으로 대행하지 않지만, 그들이 칠중 **신격**으로 결합할 때에는, --인격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격의 의미에서, 이 합동은 **삼위일체**의 기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능 수준과 동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칠중 영**”은 **낙원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7_번 으뜸 영**은, 때로 **삼위일체**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발언하거나, 또는 오히려 **삼중 신격** 연합의 의견, 즉 **낙원 삼위일체**의 의견에 관해 **칠중 영** 연합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로서 말씀한다.

일곱째 으뜸 영의 다양한 기능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적* 본성에 대한 혼합된 묘사{描寫}로부터, **지존자 하나님**의 *개인적* 의견을 대변{代辯}하기뿐 아니라 **낙원 삼위일체**의 *신격*의 의견을 나타내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관장하는 이 **영**은 어떤 면에서 **궁극자**의, 그리고 **최상급_궁극자**의 의견을 비슷하게 표현한다.

지존성을 갖는 나뉘지 않은 **신격**을 납득하려고 시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후보자들이 시도할 때, 다양한 자격으로 그들의 진행을 직접 후원하는 이는 바로 **7_번 으뜸 영**이다. 그런 납득은 **지존 삼위일체**의 실존적 주권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은 피조물이 **지존성**의 통일을 파악할 정도까지, **지존하신 분**의 증가하는 체험적 주권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 이 세 요소를 피조물이 깨닫는 것은 **삼위일체** 실체를 **하보나**에서 납득한 것과 같으며, 결국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역량, 즉 **신격**의 세 무한 인격자를 발견하는 역량을, 시간 세계의 순례자들에게 부여한다.

하보나 순례자들이 **지존자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치 못하는 무능력을 **일곱째 으뜸 영**이 보상해 주는데, 그의 삼중 본성은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지존자**의 영 인격자를 드러낸다. **지존자**의 인격자와 접촉할 수 없는 현 우주 시대 동안, 개인적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7_번 으뜸 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작용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가 영광의 중심에 도달할 때 분명하게

proportions of the three infinite persons whose Deity union is the Paradise Trinity, and whose function as such is the source of the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of God the Supreme. Hence the Seventh Master Spirit discloses a personal and organic relationship to the spirit person of the evolving Supreme. Therefore in the Master Spirit councils on high,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cast the ballot for the combined personal attitud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r to depict the spiritual attitude of the Supreme Being,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functions. He thus inherently becomes the presiding head of the Paradise council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3.16 (188.4) No one of the Seven Spirits is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when they unite as sevenfold Deity, this union in a deity sense — not in a personal sense — equivalates to a functional level associable with Trinity functions. In this sense the “Sevenfold Spirit” is functionally associable with the Paradise Trinity. It is also in this sense that Master Spirit Number Seven sometimes speaks in confirmation of Trinity attitudes or, rather, acts as spokesman for the attitude of the Sevenfold-Spirit-union regarding the attitude of the Threefold-Deity-union, th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16:3.17 (188.5) The multiple functions of the Seventh Master Spirit thus range from a combined portraiture of the *personal natures*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through a representation of the *personal attitude* of God the Supreme, to a disclosure of the *deity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n certain respects this presiding Spirit is similarly expressive of the *attitudes* of the Ultimate and of the Supreme-Ultimate.

16:3.18 (188.6)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in his multiple capacities, personally sponsors the progress of the ascension candidates from the worlds of time in their attempts to achieve comprehension of the undivided Deity of Supremacy. Such comprehension involves a grasp of the existential sovereignty of the Trinity of Supremacy so co-ordinated with a concept of the growing experienti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as to constitute the creature grasp of the unity of Supremacy. Creature realization of these three factors equals Havona comprehension of Trinity reality and endows the pilgrims of time with the ability eventually to penetrate the Trinity, to discover the three infinite persons of Deity.

16:3.19 (188.7) The inability of the Havona pilgrims fully to find God the Supreme is compensated by the Seventh Master Spirit, whose triune nature in such a peculiar manner is revelatory of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of the noncontactability of the person of the Supreme, Master Spirit Number Seven functions in the place of the God of ascendant

인식하고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영 존재다.

이 **으뜸 영**은, 바로 우리의 창조 분단(分團)인 일곱째 연방우주의 **우버사** 본부의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경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본성들을 대등하게 혼합한, 경이로운 균형미를 나타낸다.

4. 으뜸 영의 속성과 기능

일곱 으뜸 영은, 진화 우주들에게 **무한한 영**을 온전히 대변한다. 그들은 에너지, 정신, 및 영의 관계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을 대변한다. 그들은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경영 통제를 협조하는 우두머리로서 작용하지만, **낙원 신격**들의 창조적 행위에서 기원됐음을 잊지 말라. 이 **일곱 영**이 인격화된 물리적 동력이고, 시공우주 정신이며, 삼중 **신격**의 영적 현존, 즉 “모든 우주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으뜸 영들은, 절대성을 빼고는 실체의 모든 우주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방우주 활동 가운데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영 직무의 모든 국면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감독관이다. 필사 정신을 가진 자들이 **으뜸 영**들에 관해 아주 많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 포함함에도, 너무나 특화되고 너무나 물질적인 동시에 아주 절묘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 이 다재다능한 시공우주 정신 창조자들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조상이고, 그들은 자신은 방대하고 광범한 영_피조물 창조를 최상으로 지휘하는 자다.

일곱 으뜸 영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창조자인데, 이 동역자들은 광우주의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조직, 통제, 및 규제에 필수 불가결한 실체다. 그리고 동일한 이 **으뜸 영**들은 지방우주를 구체화시키고 조직하는 동안, 대단히 물질적으로 **창조주 아들**들을 돕는다.

우리는, **으뜸 영**들의 시공우주_에너지 작업과 **무조건 절대자**의 힘 기능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 관계도 추적할 수 없다. **으뜸 영**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에너지 형태화들은 모두 **낙원** 주변으로부터 유도(誘導)되며; 이것은 **낙원** 하부 표면과 공명(共鳴)된 힘 현상과 어떤 직접 방법으로도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creatures in the matter of personal relationships. He is the one high spirit being that all ascenders are certain to recognize and somewhat comprehend when they reach the centers of glory.

16:3.20 (189.1) This Master Spirit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our own segment of creation. His administration of Orvonton discloses the marvelous symmetry of the co-ordinate blending of the divine natures of Father, Son, and Spirit.

4.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ASTER SPIRITS

16:4.1 (189.2)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ful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y represent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the relationships of energy, mind, and spirit. While they function as the co-ordinating heads of the universal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onjoint Actor, do not forget that they have their origin in the creative acts of the Paradise Deities.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se Seven Spirits are the personalized physical power, cosmic mind, and spiritual presence of the triune Deity,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forth to all the universe.”

16:4.2 (189.3) The Master Spirits are unique in that they function on all universe levels of reality excepting the absolute. They are, therefore, efficient and perfect supervisors of all phases of administrative affairs on all levels of superuniverse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the mortal mind to understand very much about the Master Spirits because their work is so highly specialized yet all-embracing, so exceptionally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so exquisitely spiritual. These versatile creators of the cosmic mind are the ances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are, themselves, supreme directors of the vast and far-flung spirit-creature creation.

16:4.3 (189.4)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crea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entities who are indispensable to the organiz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 physical energies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se same Master Spirits very materially assist the Creator Sons in the work of shaping and organizing the local universes.

16:4.4 (189.5) We are unable to trace any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cosmic-energy work of the Master Spirits and the forc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energy manifest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ster Spirits are all directed from the periphery of Paradise; they do not appear to be in any direct manner associated

우리가 다양한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의 기능 상 활동에 접하게 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으뜸 영**들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 가운데 어떤 것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 통제관 및 영{靈} 사역자의 이 조상들 외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우주 실체 국면에--곧 모론시아 물질과 모론시아 정신에--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혼합하고 연합하는 물질적 및 영적 에너지에 대해 그토록 기여할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영적 세계의 실체들 대부분은, 모론시아 계층, 즉 **유란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우주 실체의 어떤 국면에 해당한다. 인격이 실존하는 목표는 영적이지만, 모론시아 창조계가 항상 개입되는데, 필사자가 기원되는 물질 영역들과, 승진하는 영적 지위의 연방우주 구체들 사이에 있는 격차를 메워준다. **으뜸 영**들이 사람의 **낙원** 상승 계획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다.

일곱 으뜸 영은 광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대행자들을 소유하지만;하위{下位}의 이 존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필사자 진보의 **낙원** 완전성 경로에서 상승 요강과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일곱 으뜸 영**의 활동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춰져 있는데, 너희가 **낙원**으로 상승하는 문제에 어떤 방법으로 도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오르본톤**의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은 활동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지방우주 **생명 운반자**의 생명_개시 과정.
2. 지방우주 **창조적 영**이 여러 세계에 증여한 보조 정신_영들의 생명 활성화.
3. 직선_인력{引力}에 반응하는 조직된 물질 단위가 표현하는 에너지 형태화의 변동.
4. **무조건 절대자**의 지배로부터 충분히 해방될 때 떠오르는 에너지 행태인데, 이것은 직선 인력의 직접 영향력에 대해, 그리고 **우주 동력 지휘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조종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5. 지방우주 **창조적 영**이 증여하는 보살피는 영인데, **유란시아**에서는 **거룩한 영**으로 알려져 있다.
6. 증여 **아들**이 나중에 증여하는 영인데, **유란시아**에서는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with the force phenomena identified with the nether surface of Paradise.

16.4.5 (189.6) Unquestionably, when we encounter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the various Morontia Power Supervisors, we are face to face with certain of the unrevealed activities of the Master Spirits. Who, aside from these ancestors of both physical controllers and spirit ministers, could have contrived so to combine and associate material and spiritual energies as to produce a hitherto nonexistent phase of universe reality — morontia substance and morontia mind?

16.4.6 (189.7) Much of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worlds is of the morontia order, a phase of universe reality wholly unknown on Urantia. The goal of personality existence is spiritual, but the morontia creations always intervene, bridging the gulf between the material realms of mortal origin and the superuniverse spheres of advancing spiritual status. It is in this realm that the Master Spirits make their great contribution to the plan of man's Paradise ascension.

16.4.7 (190.1)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personal representatives who function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but since a large majority of these subordinate beings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in the path of Paradise perfection, little or nothing has been revealed about them. Much, very much, of the activit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remains hidden from human understanding because in no way does it directly pertain to your problem of Paradise ascent.

16.4.8 (190.2) It is highly probable, though we cannot offer definite proof, that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exerts a decided influence in the following spheres of activity:

16.4.9 (190.3) 1. The life-initiation procedures of the local universe Life Carriers.

16.4.10 (190.4) 2. The life activation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bestowed upon the worlds by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16.4.11 (190.5) 3. The fluctuations in energy manifestations exhibited by the linear-gravity-responding units of organized matter.

16.4.12 (190.6) 4. The behavior of emergent energy when fully liberated from th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us becoming responsive to the direct influence of linear gravity and to the manipulation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16.4.13 (190.7) 5. The bestowal of the ministry spirit of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known on Urantia as the Holy Spirit.

16.4.14 (190.8) 6. The subsequent bestowal of the spirit of the bestowal Sons, on Urantia called the

7. 지방우주들과 연방우주의 반사성 장치. 색다른 이 현상과 관련된 많은 특색은, **공동 행위자** 및 **지존하신 분**과 연합하는 **으뜸 영**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곱 으뜸 영의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적절하게 납득하지 못함에도, 우리는 우주 활동의 광대한 범위 안에서 그들이 아무 것도 상관할 수 없는 두 영역: 즉 **사고 조율사**들의 증여와 사역,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의 헤아릴 수 없는 기능이 있다고 믿는다.

5. 피조물에 대한 관계

광우주의 각 분단(分團), 즉 개별 우주와 세계는, **일곱 으뜸 영** 전체의 일치된 조언과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지만, 직접 접촉과 영향은 한 분에게서만 받는다. 그리고 각 **으뜸 영**의 개인 본성이 그 연방우주에 완전히 충만하고 독특하게 규정한다.

일곱 으뜸 영의 이 개인적 영향을 통해, **낙원**과 **하보나** 밖에 있는 지성 존재들로 이뤄진 각 계층의 피조물마다, 이 **일곱 낙원 영** 가운데 어떤 하나의 선천적 본성을 나타내는, 개성을 갖는 독자적 표시를 반드시 지니게 돼있다. 일곱 연방우주를 고려할 때, 각각의 원주민 피조물, 즉 사람 또는 천사는 출생 신분을 나타내는 이 표시(標識)를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일곱 으뜸 영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개별 피조물의 물질 정신을 직접 침범하지 않는다. **오르본톤 으뜸 영**의 정신 영 영향력이 직접 현존함을,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체험하지 못한다. 인간 거주 세계의 초기 진화 시대에, 이 **으뜸 영**이 개별 필사 정신과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달성한다면, 반드시 그 지방우주 **창조적 영**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창조적 영**은 각 지방 창조물의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의 배우자요 동역자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적 어머니 영**은, 본성과 성품에서 **오르본톤 으뜸 영**과 매우 비슷하다.

으뜸 영의 물리적 표시는 사람의 물질 기원의 일부분이다. 모른시아 생애 전체는, 동일한 이 **으뜸 영**의 계속되는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다. 그런 상승하는 필사자가 바로 이 감독하는 **영** 특유의 표시를 결코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으뜸 영**의 흔적은, 필사자가 **하보나에** 이르기 전에 어떤 상승 단계에서든지 바로 그 실존에 기본이다.

Comforter or the Spirit of Truth.

16:4.15 (190.9) 7. The reflectivity mechanism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 Many features connected with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can hardly be reasonably explained or rationally understood without postulating the activity of the Master Spirits in association with the Conjoint Actor and the Supreme Being.

16:4.16 (190.10) Notwithstanding our failure adequately to comprehend the manifold working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e are confident there are two realms in the vast range of universe activities with which they have nothing whatever to do: the bestowal and ministr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inscrutabl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5. RELATION TO CREATURES

16:5.1 (190.1) Eac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each individual universe and world, enjoys the benefits of the united counsel and wisdom of all Seven Master Spirits but receives the personal touch and tinge of only one. And the personal nature of each Master Spirit entirely pervades and uniquely conditions his superuniverse.

16:5.2 (190.1) Through this personal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every creature of every order of intelligent beings,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must bear the characteristic stamp of individuality indicative of the ancestral nature of some one of these Seven Paradise Spirits. As concerns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native creature, man or angel, will forever bear this badge of natal identification.

16:5.3 (191.1) The Seven Master Spirits do not directly invade the material minds of the individual creatur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 mortals of Urantia do not experience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mind-spirit influence of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If this Master Spirit does attain any sort of contact with the individual mortal mind during the earlier evolutionary ages of an inhabited world, it must occur through the ministry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the consort and associate of the Creator Son of God who presides over the destinies of each local creation. But this very Creative Mother Spirit is, in nature and character, quite like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16:5.4 (191.2) The physical stamp of a Master Spirit is a part of man's material origin. The entire morontia career is lived under the continuing influence of this same Master Spirit. It is hardly strange that the subsequent spirit career of such an ascending mortal never fully eradicates the characteristic stamp of this same supervising Spirit. The impress of a Master Spirit is basic to the very existence of every pre-Havona stage of

특유의 인격이 진화 필사자의 생애 체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각 연방우주마다 특유하고, 지배하는 **으뜸 영**의 본성에 대한 직접 표현이며, 이 경향은 그런 상승자들이 10억 개의 **하보나** 교육 구체에서 받을 긴 훈련과, 통합시키는 훈육에 순응하게 된 후에도, 결코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 후의 강렬한 **낙원** 문화도, 연방우주 기원 표식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영원성 내내, 자신이 탄생된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을 표시하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 **완결성취 단계** 안에서도, 진화 창조에 대한 완성된 **삼위일체** 관계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묘사하도록 요구될 때, 각 연방우주에서 한 명씩, 일곱 완결성취자로 이뤄진 어떤 집단이 항상 소집된다.

6. 시공우주 정신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신의 칠중{七重} 근원이요, 광우주의 지적 잠재력이다. 이 시공우주 정신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이 준절대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정신에 기능적으로 관련된다.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 종족들의 업무에 **일곱 으뜸 영**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네바돈의 창조적 영**의 즉각적 영향력 아래서 산다. 그럼에도, 바로 이 **으뜸 영**들이 모든 피조물 정신의 근본 반응을 지배하는데, 이는 그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에 거주하는 그런 개인의 생애에서 작용하도록 지방우주에 전문화돼 온, 지적 및 영적 잠재력의 실제 근원이기 때문이다.

시공우주 정신이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유형의 인간 및 초월인간 정신의 유사성{類似性}을 설명한다. 유사한 영들이 서로 이끌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신들 역시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 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정신들은, 때로 놀라운 유사성과 설명할 수 없는 일치된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발견된다.

시공우주 정신의 전체 인격체 연합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존재한다. 과학, 철학, 및 종교의 함축된 선형적{先驗的} 가정{假定}에 무력하게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구조하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 시공우주 재능이다. 실체에 대한 이 시공우주 정신의 민감성은, 에너지-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면의 실체들에 반응한다. 이 초물질 실체들이 시공우주 정신에 그

mortal ascension.

16:5.5 (191.3) The distinctive personality trends exhibited in the life experience of evolutionary mortals, which are characteristic in each superuniverse, and which are directly expressive of the nature of the dominating Master Spirit, are never fully effaced, not even after such ascenders are subjected to the long training and unifying discipline encountered on the one billion educational spheres of Havona. Even the subsequent intense Paradise culture does not suffice to eradicate the earmarks of superuniverse origin. Throughout all eternity an ascendant mortal will exhibit traits indicative of the presiding Spirit of his superuniverse of nativity. Even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when it is desired to arrive at or to portray a *complete* Trinity relationship to the evolutionary creation, always a group of seven finaliters is assembled, one from each superuniverse.

6. THE COSMIC MIND

16:6.1 (191.4) The Master Spirits are the sevenfold source of the cosmic mind,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the grand universe. This cosmic mind is a subabsolute manifestation of th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in certain ways, is functionally related to the mind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16:6.2 (191.5) On a world like Urantia we do not encount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the affairs of the human races. You live under the immediate influence of the Creative Spirit of Nebadon. Nevertheless these same Master Spirits dominate the basic reactions of all creature mind because they are the actual sources of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potentials which have been specialized in the local universes for function in the lives of those individuals who inhabit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16:6.3 (191.6) The fact of the cosmic mind explains the kinship of various types of human and superhuman minds. Not only are kindred spirits attracted to each other, but kindred minds are also very fraternal and inclined towards co-operation the one with the other. Human minds are sometimes observed to be running in channels of astonishing similarity and inexplicable agreement.

16:6.4 (191.7) There exists in all personality associations of the cosmic mind a quality which might be denominated the “reality response.” It is this universal cosmic endowment of will creatures which saves them from becoming helpless victims of the implied a priori assumption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This reality sensitivity of the cosmic mind responds to certain phases of reality just as energy-material responds to gravity.

렇게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시공우주 정신은 우주 실체의 세 수준에서 반드시 반응한다(즉 반응함을 인식한다). 이 반응은 분명하게 추론하는, 그리고 깊이 사색하는 정신에게 스스로 증거한다. 이 실체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인** --물리적 의미의 실체 범위, 논리적 확실성의 과학적 영역, 사실성과 비사실성의 구별, 시공우주 반응에 입각한 사려 깊은 결론. 이것은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산술적 형태다.

2. **의무** --철학 영역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범위, 이성의 경기장,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이것은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사법 형태다.

3. **경배**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의 영적 범위, 신성한 교제를 개인적으로 깨달음, 영적 가치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존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종 신분으로부터 상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림. 이것은 시공우주 정신의 가장 높은 통찰력, 즉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경건하고 존귀한 형태다.

이런 과학적, 도덕적, 및 영적 통찰력, 즉 이런 시공우주 반응은 시공우주 정신에 내재적인데, 시공우주 정신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된다. 생활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시공우주 직관을 개발하며; 이것들은 사려 깊은 사색의 자아 인식에 구조적으로 들어 있다. 그러나 용감하고 독립적인 시공우주 사색의 이런 특성 개발을 즐겨 위하는 사람이, **유란시아**에는 거의 없다고 기록해야 되니, 안타깝다.

지방우주의 정신이 증여될 때, 시공우주 정신의 이 세 통찰력은 선형적 가정에 해당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자아 의식적인 인격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무한자**가 이렇게 셋으로 형태화한다는 현실을, 자기 계시라는 시공우주 기법으로 알아차린다. 수학적 감각 논리가 물질 에너지를 감지하며; 정신 이성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직관적으로 알며; 영 신앙은 (경배는) 영적 체험이라는 실체를 믿는 종교다. 회고하면서 생각하는 동안에, 이 세 기본 요소가 인격의 성장을 목적으로 통합되고 조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지고 각각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무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통일될 때, 사실에 근거한 과학, 도덕 철학, 그리고 참된 종교 체험을 상호 관련시키는 어떤 강력한 성품을 창출한다. 사물, 의미, 및 가치를 맞보는 체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사람의 체험에, 객관적인 타당성, 즉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 세 시공우주 통찰력이다.

It would be still more correct to say that these supermaterial realities so respond to the mind of the cosmos.

16:6.5 (192.1) The cosmic mind unfailingly responds (recognizes response) on three levels of universe reality. These responses are self-evident to clear-reasoning and deep-thinking minds. These levels of reality are:

16:6.6 (192.2) 1. *Causation* — the reality domain of the physical senses, the scientific realms of logical uniformity,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ctual and the nonfactual, reflective conclusions based on cosmic response. This is the mathematic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7 (192.3) 2. *Duty* — the reality domain of morals in the philosophic realm, the arena of reason, the recognition of relative right and wrong. This is the judici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8 (192.4) 3. *Worship* — the spiritual domain of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the personal realization of divine fellowship, the recognition of spirit values, the assurance of eternal survival, the ascent from the status of servants of God to the joy and liberty of the sons of God. This is the highest insight of the cosmic mind, the reverential and worshipfu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9 (192.5) The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s, these cosmic responses, are innate in the cosmic mind, which endows all will creatures. The experience of living never fails to develop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ey are constitutive in the self-consciousness of reflective thinking. But it is sad to record that so few persons on Urantia take delight in cultivating these qualities of courageous and independent cosmic thinking.

16:6.10 (192.6) In the local universe mind bestowals, these three insights of the cosmic mind constitute the a priori assump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man to function as a rational and self-conscious personality in the realm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Stated otherwise,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se three manifestations of the Infinite is by a cosmic technique of self-revelation. Matter-energy is recognized by the mathematical logic of the senses; mind-reason intuitively knows its moral duty; spirit-faith (worship) is the religion of the reality of spiritual experience. These three basic factors in reflective thinking may be unified and co-ordinated in personality development, or they may become disproportionate and virtually unrelated in their respective functions. But when they become unified, they produce a strong character consisting in the correlation of a factual science, a moral philosophy, and a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And it is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at give objective validity, reality, to man's experience in and with things, meanings, and values.

인간 정신의 이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며;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인생 체험의 목적이며; 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며; 이를 통합시키는 것이 인격의 목적이다.

7. 도덕, 미덕, 및 인격

지성만으로는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성과 미덕은 인간의 인격에 고유하다. 도덕적 직관, 의무의 실현은, 인간 정신 재능의 한 요소이며, 인간 본성 중에서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것들, 즉: 과학적 호기심 및 영적 통찰력과 연합돼 있다. 사람의 지력{知力}이 동물 친족의 지력을 훨씬 초월하지만, 사람을 동물계로부터 특히 구분시키는 것은 도덕적 및 종교적 본성이다.

동물의 선택적 반응은, 습성이라는 운동 신경 수준에 제한돼 있다. 고등 동물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통찰력은 운동 신경 수준에 있는 것이고, 대개 운동 신경이 시행착오를 체험한 후에만 나타난다. 사람은 모든 탐험 또는 실험 이전에, 과학적, 도덕적, 및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행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는 오직 인격체만이 알 수 있으며; 오직 인격체들만이 체험 이전에 통찰력을 갖는다. 인격체는 자신이 뛰기 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뛰는 것으로부터는 물론 조사함으로써도 배울 수 있다. 인격없는 동물은 대개 뒹으로써만 배운다.

체험한 결과로, 동물은 목표를 성취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누적된 체험에 기초해서 하나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격체는, 목표 자체 역시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이 보람_있는지, 그것이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성체 혼자서는 기껏해야 구별되지 않는 종착점에 도달하는 수단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종착점들 사이뿐 아니라 수단들 사이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졌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는 미덕{美德}을 택하는 데에도 영리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인지 안다.

사람이 필사자로서 도달하려고 애쓰는 여러 종착점을 분별하지 못할 때, 동물 실존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인격있는 존재로서, 사람은 시공우주_정신 재능의 불가결한 부분인, 물질적 총명성과 도덕적 분별력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뛰어난 장점을 스스로 발휘하기에 실패해 왔다.

미덕은 정의{正義}다--곧 시공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덕을 규정 짓기 위함이 아니지만,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미덕을 앎이다. 미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

16:6.11 (192.7) I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to develop and sharpen these innate endowments of the human mind; of civilization to express them; of life experience to realize them; of religion to ennoble them; and of personality to unify them.

7. MORALS, VIRTUE, AND PERSONALITY

16:7.1 (192.8) Intelligence alone cannot explain the moral nature. Morality, virtue, is indigenous to human personality. Moral intuition, the realization of duty, is a component of human mind endowment and is associated with the other inalienables of human nature: scientific curiosity and spiritual insight. Man's mentality far transcends that of his animal cousins, but it is his moral and religious natures that especially distinguish him from the animal world.

16:7.2 (193.1) The selective response of an animal is limited to the motor level of behavior. The supposed insight of the higher animals is on a motor level and usually appears only after the experience of motor trial and error. Man is able to exerci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 prior to all exploration or experimentation.

16:7.3 (193.2) Only a personality can know what it is doing before it does it; only personalities possess insight in advance of experience. A personality can look before it leaps and can therefore learn from looking as well as from leaping. A nonpersonal animal ordinarily learns only by leaping.

16:7.4 (193.3) As a result of experience an animal becomes able to examine the different ways of attaining a goal and to select an approach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But a personality can also examine the goal itself and pass judgment on its worth-whileness, its value. Intelligence alone can discriminate as to the best means of attaining indiscriminate ends, but a moral being possesses an insight which enables him to discriminate between ends as well as between means. And a moral being in choosing virtue is nonetheless intelligent. He knows what he is doing, why he is doing it, where he is going, and how he will get there.

16:7.5 (193.4) When man fails to discriminate the ends of his mortal striving, he finds himself functioning on the animal level of existence. He has failed to avail himself of the superior advantages of that material acumen, moral discrimination, and spiritual insight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his cosmic-mind endowment as a personal being.

16:7.6 (193.5) Virtue is righteousness — conformity with the cosmos. To name virtues is not to define them, but to live them is to know them. Virtue is not mere knowledge nor yet wisdom but rather the

도 아니며, 오히려 상승하는 수준의 시공우주 업적을 달성해서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실체다. 필사적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미덕은 악보다 선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실현되며, 도덕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런 선택 역량이 증명한다.

사람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의 예민함뿐 아니라 무지와 미성숙과 망상 같은 그런 작용에도 영향을 받는다. 균형 감각 역시 미덕의 실천에서 고려되는데, 왜곡이나 기만의 결과로, 비교적 나은 것 대신에 비교적 못한 것이 선택될 때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평가, 즉 비교해서 측정하는 기술이, 도덕 범주에 속하는 미덕을 실천하게 한다.

측정하는 기술, 즉 의미를 세밀히 조사하는 역량에 포함된 분별력이 없다면, 사람의 도덕적 본성은 아무 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시공우주 통찰력 없이는, 도덕적 선택이 쓸모없을 것이다.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도덕적 존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결코 법이나 힘으로 증진될 수 없다. 도덕성은 개인적이고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격자들이, 도덕적으로 털 반응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 **아버지**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접촉해서 감화시킴으로써 도덕성이 전파돼야 한다.

뛰어난 중착점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이 중착점에 도달하는 도덕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도덕적 행동은, 가장 고상한 지성이 특징인 그런 인간적 실행인데, 선택하는 분별력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 행위는 고결하다. 그렇다면, 최상의 미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8. 유란시아 인격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제성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계층의 존재에게, **만유의 아버지**께서 인격을 증여한다. **유란시아**의 인간은,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 수준에서 작용하는, 유한한_필사자 유형의 인격을 부여받는다.

우리가 인격을 정의하기는 도저히 장담할 수 없더라도,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의 전체 조화를 이루게 될, 알려진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보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들의 상호연합체가 기계장치를 구성하며, 그 장치 속에서, 그 위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이 증여한 인격이 활동하도록 만든다.

인격은 독창적 본성을 갖는 어떤 독특한 재능

reality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attainment of ascending levels of cosmic achievement. In the day-by-day life of mortal man, virtue is realized by the consistent choosing of good rather than evil, and such choosing ability is evidence of the possession of a moral nature.

16:7.7 (193.6) Man's choosing between good and evil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keenness of his moral nature, but also by such influences as ignorance, immaturity, and delusion. A sense of proportion is also concerned in the exercise of virtue because evil may be perpetrated when the lesser is chosen in the place of the greater as a result of distortion or deception. The art of relative estimation or comparative measurement enters into the practice of the virtues of the moral realm.

16:7.8 (193.7) Man's moral nature would be impotent without the art of measurement, the discrimination embodied in his ability to scrutinize meanings. Likewise would moral choosing be futile without that cosmic insight which yields the consciousness of spiritual values. From the standpoint of intelligence, man ascends to the level of a moral being because he is endowed with personality.

16:7.9 (193.8) Morality can never be advanced by law or by force. It is a personal and freewill matter and must be disseminated by the contagion of the contact of morally fragrant persons with those who are less morally responsive, but who are also in some measure desirous of doing the Father's will.

16:7.10 (193.9) Moral acts are those human performanc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intelligence, directed by selective discrimination in the choice of superior ends as well as in the selection of moral means to attain these ends. Such conduct is virtuous. Supreme virtue, then, is wholeheartedly to choos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8. URANTIA PERSONALITY

16:8.1 (194.1) The Universal Father bestows personality upon numerous orders of beings as they function on diverse levels of universe actuality. Urantia human beings are endowed with personality of the finite-mortal type, functioning on the level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16:8.2 (194.2) Though we can hardly undertake to define personality, we may attempt to narrate our understanding of the known factors which go to make up the ensemble of material, mental, and spiritual energies whose interassociation constitutes the mechanism wherein and whereon and wherewith the Universal Father causes his bestowed personality to function.

16:8.3 (194.3) Personality is a unique endowment of

인테, 그 본성이 실존하는 것은 **사고 조율사** 중여와는 무관하고, 그보다 앞선다. 그럼에도 **조율사** 현존이 인격의 질적 형태화를 향상시킨다. **사고 조율사**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격은 다양하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이며; 인격의 형태화는, 인격을 형태화시키기 위하여 생물 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자질과 관련된 에너지의 본성과 특성에 따라서 더욱 제약받고 제한된다.

인격체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 일정한 계열, 유형, 계층, 또는 원형{原型}에 속하는 인격자들은 서로 닮을 수 있고 또한 닮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인격은 우리가 아는 어떤 개체의 그 특색이며, 그런 존재를 언젠가 미래 시간에, 형태, 정신, 또는 영 상태가 어떤 자질을 갖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인격은, 어떤 개체든지 그의 인격이 표현되고 형태화된 몸체의 변경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가에 상관없이, 그 전에 우리가 알아 왔던 그 사람으로서 그 인격자를 알아보고 분명히 식별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다.

피조물 인격은, 필사자가 반응하는 습성의 자아_형태화 현상 및 독자적 현상: 즉 자아_의식, 그리고 관련된 상대적 자유 의지, 이 두 가지에 따라 구별된다.

자아_의식은, 인격이 실제임을 지적으로 자각함에 있으며; 다른 인격체들이 실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자아_의식은, 시공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그 실체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체험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우주의 인격 관계에서 주체성 신분을 달성하는 것에 상당한다. 자아_의식은, 정신 사역이 사실임을 인식하고, 창조적 및 확정적 자유의지가 비교적 자립을 이룩했음을 의미한다.

인간 인격의 자아_의식의 특징을 이루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에 관련된다: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2. 영적 선택, 진리를 분별함.
3. 이타적 사랑, 형제관계의 봉사.
4. 목적 있는 협동, 집단 충성심.
5. 시공우주 통찰력, 우주 의미들에 대한 파악.
6. 인격체의 헌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함.

original nature whose existence is independent of, and antecedent to,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 Nevertheless, the presence of the Adjuster does augment the qualitativ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Thought Adjusters, when they come forth from the Father, are identical in nature, but personality is diverse, original, and exclusive; an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is further conditioned and qualified by the nature and qualities of the associated energies of a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nature which constitute the organismal vehicle for personality manifestation.

16:8.4 (194.4) Personalities may be similar, but they are never the same. Persons of a given series, type, order, or pattern may and do resemble one another, but they are never identical. Personality is that feature of an individual which we know, and which enables us to identify such a being at some future time regardless of the nature and extent of changes in form, mind, or spirit status. Personality is that part of any individual which enables us to recognize and positively identify that person as the one we have previously known, no matter how much he may have changed because of the modification of the vehicle of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of his personality.

16:8.5 (194.5) Creature personality is distinguished by two self-manifesting and characteristic phenomena of mortal reactive behavior: self-consciousness and associated relative free will.

16:8.6 (194.6) Self-consciousness consists in intellectual awareness of personality actuality; it includ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ies. It indicates capacity for individualized experience in and with cosmic realities, equivalating to the attainment of identity status in the personality relationships of the universe. Self-consciousness connotes recognition of the actuality of mind minist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relative independence of creative and determinative free will.

16:8.7 (194.7) The relative free will which characterizes the self-consciousness of human personality is involved in:

- 16:8.8 (194.8) 1. Moral decision, highest wisdom.
- 16:8.9 (194.9) 2. Spiritual choice, truth discernment.
- 16:8.10 (194.10) 3. Unselfish love, brotherhood service.
- 16:8.11 (194.11) 4. Purposeful co-operation, group loyalty.
- 16:8.12 (194.12) 5. Cosmic insight, the grasp of universe meanings.
- 16:8.13 (194.13) 6. Personality dedication, wholehearted devotion to doing the Father's will.

7. 경배, 신성한 가치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신성한 **가치_증여자**를 전심으로 사랑함

유란시아 유형의 인간 인격은, 전기화학적으
로 생명을 활성화 시키는 계통에 속하며, 부모가
출산하는 방식으로, **오르본톤** 계열 가운데 **네바돈**
체제의 시공우주 정신을 부여받고, **네바돈** 유형의
유기체를 행성에서 변경한, 물리적 장치 속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정신이_부여
된 그런 필사 장치에 인격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증여함이, 시공우주 시민권의 존엄성을 수여하고,
그런 필사 피조물이 다음과 같은 시공우주의 기본
적 세 정신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즉시
반응하도록 만든다:

1. 물리적 인과관계의 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함.

2. 도덕적으로 처신할 책임을 합리적으로 인
식함.

3. **신격**과 교제하고 경배드림을 신앙이_과악
함, 이와 관련해서 인류에게 사랑으로 봉사함.

그런 인격 자질이 최대한 작용한다는 것은,
신격과 친족관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전{人格以前} 단편이 내주
하는 그런 자아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
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런 피조물은 신성한 현존
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
라, 모든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의 인격_인력{引
力} 회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9. 인간 의식의 실체

시공우주_정신을_타고난, **조율사**가 내주하
는 인격있는 피조물은, 에너지 실체, 정신 실체, 및
영 실체를 인식하고, 깨닫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
고 있다.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사
실, 법칙, 및 사랑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렇게 부여
받는다. 양도할 수 없는 이 세 인간 의식 외에, 모
든 인간 체험은 정말로 주관적인데, 다만 직관으
로 타당성을 깨닫는 것은 시공우주 인식의 이 세
우주 실체 반응의 통합에 부수된다.

하나님을 식별하는 필사자는, 생존하는 혼이
진화하는 동안 이 세 가지 시공우주 특성의 통합
된 가치를 감지할 수 있는데, 육신의 장막 안에서
진화가 사람의 최고 이행업무이며, 이 장막에 있
는 동안에 도덕 정신은 불멸하는 혼을 이원화{二
元化}하기 위해,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협력한다.
혼은 초기 발단부터 **실재**하며; 생존하는 시공우주
특성들을 소유한다.

필사적 사람이 자연사{自然死} 이후에 생존하
지 못하면, 그의 인간 체험의 실제 영적 가치는 **사**

16:8.14 (195.1) 7. Worship, the sincere pursuit of
divine values and the wholehearted love of the
divine Value-Giver.

16:8.15 (195.2) The Urantia type of human personality
may be viewed as functioning in a physical
mechanism consisting of the planetary
modification of the Nebadon type of organism
belonging to the electrochemical order of life
activation and endowed with the Nebadon order of
the Orvonton series of the cosmic mind of
parental reproductive pattern. The bestowal of the
divine gift of personality upon such a mind-
endowed mortal mechanism confers the dignity of
cosmic citizenship and enables such a mortal
creature forthwith to become reactive to the
constitutive recognition of the three basic mind
realities of the cosmos:

16:8.16 (195.3) 1. The mathematical or logical
recognition of the uniformity of physical causation.

16:8.17 (195.4) 2. The reasoned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of moral conduct.

16:8.18 (195.5) 3. The faith-grasp of the fellowship
worship of Deity, associated with the loving
service of humanity.

16:8.19 (195.6) The full function of such a personality
endowment is the beginning realization of Deity
kinship. Such a selfhood, indwelt by a prepersonal
fragment of God the Father, is in truth and in fact a
spiritual son of God. Such a creature not only
discloses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the gift of
the divine presence but also exhibits reactive
response to the personality-gravity circuit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personalities.

9. REALITY OF HUMAN CONSCIOUSNESS

16:9.1 (195.7) The cosmic-mind-endowed, Adjuster-
indwelt, personal creature possesses innate
recognition-realization of energy reality, mind
reality, and spirit reality. The will creature is thus
equipped to discern the fact, the law, and the love
of God. Aside from these three inalienables of
human consciousness, all human experience is
really subjective except that intuitive realization of
validity attaches to the *unification* of these three
universe reality responses of cosmic recognition.

16:9.2 (195.8) The God-discerning mortal is able to
sense the unification value of these three cosmic
qualities in the evolution of the surviving soul,
man's supreme undertaking in the physical
tabernacle where the moral mind collaborates with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o dualize the immortal
soul. From its earliest inception the soul is *real*; it
has cosmic survival qualities.

16:9.3 (195.9) If mortal man fails to survive natural
death, the real spiritual values of his human

고 조울사의 계속되는 체험의 일부분으로 존속한다.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인격 가치는, 실현되는 **지존하신 분**의 인격에 어떤 요소로서 존속한다. 존속하는 그런 인격의 특성들은 정체성을 빼기지만, 육체 안에서 필사자 생애 동안 누적된 체험적 가치는 빼기지 않는다. 정체성의 생존은, 모른시아 신분인 불멸의 혼과, 증가하는 신성한 가치의 생존에 달렸다. 인격의 정체성은, 생존하는 혼 속에, 또한 혼이 생존함으로 살아남는다.

인간의 자아_의식은, 의식하는 자아 외에 자아 실체들에 대한 인식을 암시하고, 더욱이 그런 자각이 상호적임을 암시하며; 자아는, 자아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지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버릇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너는 네 안에 사시는 **하나님** 현존의 실체에 대해 네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동료 존재의 실체에 대해 그렇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意識)은 **하나님** 의식과는 달리 양도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이고, 지식과 상징에 달려있으며, 사람의 구조적 재능--곧 과학, 도덕성, 및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회화 된 이 시공우주 선물이 문명을 이룬다.

문명은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인류의 개인들 안에 선천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람의 구조적 요소들--곧 과학, 도덕성, 및 종교--의 혼합된 기여로 양육돼야 한다. 문명은 왔다가 가지만, 과학, 도덕성, 및 종교는 붕괴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는다.

예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새롭게 드러냈다. **예수**의 생애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본다. 사람이 그토록 아름답게 실현된 것은,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단하게 모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대한 의식은 (인식은) 양도될 수 없고, 모든 사람 속에 설정돼 있다.

부모로서의 본능 이외에, 이타심은 대체로 자연스럽지 않으며; 다른 인격자들을 당연히 사랑하거나 사회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려면, 이성, 도덕성, 및 종교의 충동, 즉 **하나님**을_알아감이라는 계몽이 필요하다. 사람 자신의 인격 자각, 즉 자아_의식은, 타고난 타자(他者)_자각이라는 바로 이 사실, 즉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에 이르는, 다른 인격체의 실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이 천부적 역량에 또한 직접 의존한다.

이타적인 사회의식에는 종교 의식(意識)이 틀림없이 그 밑바닥에 있으며; 사회의식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만약 객관적이지 않으면 사회의식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추상이며,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상태다. 오직 **하나님**을_아는 개인

experience survive as a part of the continuing experience of the Thought Adjuster. The personality values of such a nonsurvivor persist as a factor in the personality of the actualizing Supreme Being. Such persisting qualities of personality are deprived of identity but not of experiential values accumulated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survival of identity is dependent on the survival of the immortal soul of morontia status and increasingly divine value. Personality identity survives in and by the survival of the soul.

16:9.4 (195.10) Human self-consciousness implies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selves other than the conscious self and further implies that such awareness is mutual; that the self is known as it knows. This is shown in a purely human manner in man's social life. But you cannot become so absolutely certain of a fellow being's reality as you can of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that lives within you. The social consciousness is not inalienable like the God-consciousness; it is a cultural development and is dependent on knowledge, symbol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endowment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nd these cosmic gifts, socialized, constitute civilization.

16:9.5 (196.1) Civilizations are unstable because they are not cosmic; they are not innate in the individuals of the races. They must be nurtured by the combined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factor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Civilizations come and go, but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lways survive the crash.

16:9.6 (196.2) Jesus not only revealed God to man, but he also made a new revelation of man to himself and to other men. In the life of Jesus you see man at his best. Man thus becomes so beautifully real because Jesus had so much of God in his life, and the realization (recognition) of God is inalienable and constitutive in all men.

16:9.7 (196.3) Unselfishness, aside from parental instinct, is not altogether natural; other persons are not naturally loved or socially served. It requires the enlightenment of reason, morality, and the urge of religion, God-knowingness, to generate an unselfish and altruistic social order. Man's own personality awareness, self-consciousness, is also directly dependent on this very fact of innate other-awareness, this innate ability to recognize and grasp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y, ranging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16:9.8 (196.4) Unselfish social consciousness must be, at bottom, a religious consciousness; that is, if it is objective; otherwise it is a purely subjective philosophic abstraction and therefore devoid of love. Only a God-knowing individual can love another person as he loves himself.

만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아_의식(意識)은 본질적으로: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다. 인간의 자아_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_실체 실현이 잠재돼있고 내재적이다:

1. 지식을 추구함, 과학의 논리.
2.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 의무감.
3. 영적 가치를 추구함, 종교 체험.

4. 인격 가치를 추구함,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실체이심을 인식하는 역량, 그리고 동료 인격체들과 우리가 형제 관계를 동시에 실현함을 인식하는 역량.

너희는 사람이 피조물 형제임을 의식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의식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뤄지면, 우리가 형제관계임을 인식하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이심은 모든 도덕 피조물에게 한 우주 실체가 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인격을 증여해 왔고, 보편적 인격 회로의 지배 속에 그들을 감싸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첫째는 그가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끝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공우주 정신이, 그 자체의 근원, 즉 무한한 영의 무한한 정신에 대해 자아_의식하여 자각하게 되는 동시에, 광범한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실체를 의식하게 되는 것은 기묘하지 않은가?

[우버사에서 온,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16:9.9 (196.5) Self-consciousness is in essence a communal consciousness: God and man, Father and son, Creator and creature. In human self-consciousness four universe-reality realizations are latent and inherent:

16:9.10 (196.6) 1. The quest for knowledge, the logic of science.

16:9.11 (196.7) 2. The quest for moral values, the sense of duty.

16:9.12 (196.8) 3. The quest for spiritual values, the religious experience.

16:9.13 (196.9) 4. The quest for personality valu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God as a personality and the concurrent realization of our fraternal relationship with fellow personalities.

16:9.14 (196.10) You become conscious of man as your creature brother because you are already conscious of God as your Creator Father. Fatherhood is the relationship out of which we reason ourselves into the recognition of brotherhood. And Fatherhood becomes, or may become, a universe reality to all moral creatures because the Father has himself bestowed personality upon all such beings and has encircled them within the grasp of the universal personality circuit. We worship God, first, because he is, then, because he is in us, and last, because we are in him.

16:9.15 (196.11) Is it strange that the cosmic mind should be self-consciously aware of its own source, the infinit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and at the same time conscious of the physical reality of the far-flung universes, the spiritual reality of the Eternal Son, and the personality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6:9.16 (196.12)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from Uversa.]

제17편. 일곱 최상급 영 집단

⇨ 016

유랜시아 책

018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7편
일곱 최상급 영 집단

섹션

소개

1. 일곱 최상급 행정관
2. 위엄자—반사성의 우두머리
3. 반사하는 영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5. 일곱 회로 영
6.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
7. 보조 정신_영
8. 최상급 영의 역할

소개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일곱으로_분할된 광 우주 경영을 보편적으로 조정하는 지휘자다. 모두가 **무한한 영**의 역할을 하는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은 대개 **낙원 삼위일체**의 자녀로 분류된다:

1. **일곱 으뜸 영.**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3. **반사하는 영.**

나머지 네 집단은 **무한한 영**의 창조 활동으로 인해서, 또는 창조 자격을 갖는, **무한한 영**의 동역자들로 인해 존재하게 된다: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5. **일곱 회로 영.**
6. **지방우주 창조적 영.**
7. **보조 정신_영.**

PAPER 17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2. Majeston — Chief of Reflectivity
3. The Reflective Spirits
4. The Reflective Image Aids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7. The Adjutant Mind-Spirits
8. Functions of the Supreme Spirits

INTRODUCTION

17:0.1 (197.1)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universal co-ordinating directors of the seven-segmente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lthough all are classed among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 following three groups are usually classified as children of the Paradise Trinity:

17:0.2 (197.2) 1. The Seven Master Spirits.

17:0.3 (197.3)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17:0.4 (197.4) 3. The Reflective Spirits.

17:0.5 (197.5) The remaining four group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creative acts of the Infinite Spirit or by his associates of creative status:

17:0.6 (197.6) 4. The Reflective Image Aids.

17:0.7 (197.7)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17:0.8 (197.8)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17:0.9 (197.9) 7. The Adjutant Mind-Spirits.

17:0.10 (197.10)

이 일곱 계층은 **우버사**에서 일곱 **최상급 영**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영원한 **섬** 주변지역에 **일곱 으뜸 영**이 몸소 현존하시는 것을 비롯해서, **영**의 일곱 **낙원** 위성, **하보나** 회로들, 연방우주 정부{政府}, 그리고 지방우주 경영과 감독을 포함하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진화하는 정신 영역에 증여된 보조체들의 하위 봉사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일곱 으뜸 영은 광범한 이 경영 부문을 조정하는 지휘자다. 그들은, 조직된 물리적 동력, 정신 에너지, 그리고 비인격 영 사역{事役}을 경영상 규제하는 어떤 문제들에서 몸소 직접 행동하고, 다른 경우에는 가시각색 동역자를 통해서 작용한다. 행정적 본질--곧 통치, 규칙, 조정, 및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에서, **으뜸 영**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인격자 안에서 행동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으뜸 영**들이 **하보나 회로**의 **일곱 영**을 통해 작용할 수 있으며;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서는, **반사하는 영** 경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태고 항존자**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행동하는데,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한다.

일곱 으뜸 영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보다 하위{下位}에 있는 우주 행정부와 친히 직접 접촉하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으뜸 영**이 너희 지방우주를 우리 연방우주의 일부로서 경영하지만, **네바돈**에서 출생한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는, 너희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 거주하는 **창조적 어머니 영**이, **으뜸 영**의 역할을 즉시 이행하고 친히 지휘한다.

1. 일곱 최상급 행정관

으뜸 영들의 행정 본부가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위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가장 안쪽 **하보나 회로** 사이에서, 중앙 **섬**을 축으로 돌고 있다. 일곱 명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최상급 행정관**들이 행정 구체들을 지도하는데, **일곱 으뜸 영**의 보편적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존재로서 **일곱 으뜸 영**의 명세사항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이 집단을 삼자 일체되게 했다.

으뜸 영들은, 이 **최상급 행정관**들을 통해서, 연방우주 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접촉을 유지한다. 바로 그들이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구성 성향 대부분을 결정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성하게 완전

17:0.10 (197.10) These seven orders are known on Uversa as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Their functional domain extends from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n the periphery of the eternal Isle, through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the Havona circuits, the governments of the superuniverses, and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local universes, even to the lowly service of the adjutants bestowed upon the realms of evolutionary mind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17:0.11 (197.11)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coordinating directors of this far-flung administrative realm. In some matters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organized physical power, mind energy, and impersonal spirit ministry, they act personally and directly, and in others they function through their multifarious associates. In all matters of an executive nature — rulings, regulations, adjustments,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 the Master Spirits act in the person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Master Spirits may function through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reveal themselves through the channel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act through the persons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whom they are in 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the Reflective Image Aids.

17:0.12 (197.12) The Seven Master Spirits do not directly and personally contact universe administration below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Your local universe is administered as a part of our superuniverse by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but his function in relation to the native beings of Nebadon is immediately discharged and personally directed by the Creative Mother Spirit resident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1.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17:1.1 (198.1) The executive headquarters of the Master Spirits occupy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Infinite Spirit, which swing around the central Isle between the shining sphere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nermost Havona circuit. These executive spheres are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Executives, a group of seven who were trinitized by the Father, Son, and Spiri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for beings of a type that could function as their universal representatives.

17:1.2 (198.2) The Master Spirits maintain contact with the various division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rough these Supreme Executives. It is they who very largely determine the basic constitutive tren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하지만, 또한 다양한 인격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없으며; 그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공동 협의회를 주재하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출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일곱 으뜸 영**과 회의를 하기 위해 **낙원**으로 여행한다.

일곱 최상급 행정관은 광우주의 경영 협조자로서 활동하며; **하보나** 이후의 창조물 관리 지휘자 협회로 명명될 수 있다. 그들은 **낙원**의 내부 직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곱 회로 영**을 통해서 **하보나** 활동에 속하는 제한된 구체들을 감독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감독 범위에 거의 제한이 없으며; 그들은 물리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일에 참여하며; 일곱 연방우주와 **하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안다.

이 **최상급 행정관**들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우주 진화과정을 변경시키지도 않으며; **일곱 으뜸 영**이 선포한 신성{神性}에 속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관여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고,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주권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조하는 행정관이며, 그들의 역할은, 광우주에서 정식으로 수립된 모든 통치자의 조합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각 행정관 및 그가 맡은 구체의 시설은, 단일 연방우주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에 헌신돼 있다. **1_번 최상급 행정관**은 1_번 행정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1_번 연방우주 직무에 전적으로 관여하며, 그런 식으로 7_번 **최상급 행정관**까지 계속되는데, **영**의 일곱째 **낙원** 위성에서 일하고, 일곱째 연방우주 관리에 힘을 쏟는다. 이 일곱째 구체의 이름은 **오르본톤**인데, **영**의 **낙원** 위성이 그것과 관련된 연방우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갖기 때문이며; 사실, 연방우주의 이름은 그들을 따라 지어졌다.

일곱째 연방우주의 행정 구체에는, **오르본톤**의 직무를 똑바로 유지하기에 참여하는 참모진이, 인간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에 이르고, 천상의 지성체 각 계층을 실제로 포함한다. 인격체를 파송하는 모든 연방우주 봉사는, (**영감 받은 삼위일체 영**들 및 **사고 조율사**들을 제외하고) **낙원**으로 오가는 우주 여행에서 이 일곱 행정 세계 가운데 하나를 거쳐서 지나가며, 연방우주들에서 작용하는, **제3 근원 및 중심**이 창조한 모든 인격체를 위해, 중앙 등기소{登記所}가 여기에 유지된다. **영**의 이 행정 세계 가운데 하나에 있는, 물질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기록 체계는, 내 계층에 해당하는 존재까지도 놀라게 만든다.

They are uniformly and divinely perfect, but they also possess diversity of personality. They have no presiding head; each time they meet together, they choose one of their number to preside over that joint council. Periodically they journey to Paradise to sit in council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17.1.3 (198.3)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function as the administrative co-ordin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y might be termed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 of the post-Havona creation.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Paradise, and they direct their limited spheres of Havona activity through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Otherwise there are few limits to the scope of their supervision; they engage in the direction of things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they see all, hear all, feel all, even know all, that transpire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in Havona.

17.1.4 (198.4) These Supreme Executives do not originate policies, nor do they modify universe procedures; they are concer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plans of divinity promulgat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Neither do they interfere with the rule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uperuniverses nor with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the co-ordinating executives whose function it is to carry out the combined policies of all duly constituted rulers in the grand universe.

17.1.5 (198.5) Each of the executives and the facilities of his sphere are devoted to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 singl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Number One, functioning on executive sphere number one, is wholly occupied with the affairs of superuniverse number one, and so on to Supreme Executive Number Seven, working from the seventh Paradise satellite of the Spirit and devoting his energies to the managemen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name of this seventh sphere is Orvonton, for the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have the same names as their related superuniverses; in fact, the superuniverses were named after them.

17.1.6 (198.6) On the executive sphere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staff engaged in keeping straight the affairs of Orvonton runs into numbers beyond human comprehension and embraces practically every order of celestial intelligence. All superuniverse services of personality dispatch (except Inspired Trinity Spirits and Thought Adjusters) pass through one of these seven executive worlds on their universe journeys to and from Paradise, and here are maintained the central registries for all personalities created by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o function in the superuniverses. The system of material, morontial, and spiritual records on one of these

최상급 행정관의 직속 부하들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의 삼자일체된 아들들 대부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상승 기획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에서 영화롭게 된 인간 졸업생 중에서 삼자일체된 자손 대부분을 위해 존립한다.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최상급 위원회**의 우두머리가,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을 **최상급 행정관**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지정한다.

각 **최상급 행정관**은 두 개의 자문 기관을 갖는데: 각 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최상급 행정관**의 1차 자문 기관에서 1,000년 동안 근무하도록, 그들의 반열에서 대표자들을 선정한다.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태에서는 2차 기관이 봉사하는데, **낙원**에 도달한 필사자, 그리고 영화롭게 된 필사자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로 구성되며;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 일시 거주하는, 숙달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이 이 조직체를 선택한다. 다른 모든 직무의 우두머리는 **최상급 행정관**들이 지명한다.

때때로, 큰 비밀회의가 **영**의 이 **낙원** 위성{衛星}들에서 열린다. 이 세계들에 배정된 삼자일체된 아들들은, **낙원**에 도달한 상승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에서 분투하고 승리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영{靈} 인격체들과 회합을 갖는다. 그런 형제우애의 모임을 **최상급 행정관**들이 항상 주관한다.

낙원 시간으로 1,000년마다 한 번씩, **일곱 최상급 행정관**이 자신의 권세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지성적 창조물 무리에게 전반적으로 인사하고 행복을 빌려고, 1,000년마다 비밀회의를 갖는다. 중대한 이 행사는, 모든 반사하는 영 집단의 우두머리인, **위임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의 반사성{反射性}이라는 독특한 기능발휘를 통하여, 광우주에서 자신의 모든 동역자와 그렇게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2. 위임자--반사성의 우두머리

반사하는 영들은 신성한 **삼위일체** 기원에 해당한다. 독특하고 어느 정도 신비스런 이 존재가 50명 있다. 일곱 명의 이 비범한 인격체가 동시에 창조됐고, 그런 각각의 창조 사건은 **낙원 삼위일체**의 한 연락원과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으로 인해 초래됐다.

이 중대한 진행사항은, 시간이 시작될 때 발

executive worlds of the Spirit amazes even a being of my order.

17:1.7 (199.1) The immediate subordinates of the Supreme Executives consist for the greater part of the trinitized sons of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of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glorified mortal graduates from the agelong training of the ascendant scheme of time and space. These trinitized sons are designated for service with the Supreme Executives by the chief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7:1.8 (199.2) Each Supreme Executive has two advisory cabinets: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choose representatives from their ranks to serve for one millennium in the primary advisory cabinet of their Supreme Executiv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there is a secondary cabinet, consisting of mortals of Paradise attainment and of the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mortals; this body is chosen by the perfecting and ascending beings who transiently dwell on the seven superuniverse headquarters. All other chiefs of affairs are appointed by the Supreme Executives.

17:1.9 (199.3) From time to time, great conclaves take place on these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Trinitized sons assigned to these worlds, together with the ascenders who have attained Paradise, assemble with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the reunions of the struggles and triumphs of the ascendant career. The Supreme Executives always preside over such fraternal gatherings.

17:1.10 (199.4) Once in each Paradise millennium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vacate their seats of authority and go to Paradise, where they hold their millennial conclave of universal greeting and well-wishing to the intelligent hosts of creation. This eventful occasion takes place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Majeston, the chief of all reflective spirit groups. And they are thus able to communicate simultaneously with all their associates in the grand universe through the unique functioning of universal reflectivity.

2. MAJESTON — CHIEF OF REFLECTIVITY

17:2.1 (199.5) The Reflective Spirits are of divine Trinity origin. There are fifty of these unique and somewhat mysterious beings. Seven of these extraordinary personalities were created at a time, and each such creative episode was effected by a liais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7:2.2 (199.6) This momentous transaction, occurring in the dawn of time, represents the initial effort of

생했는데, **낙원 삼위일체**와 함께 창조자로서 작용하기 위해, **으뜸 영**들이 대표하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초기 노력을 보여준다. **삼위일체**의 창조 잠재력과 **최상급 창조주**들의 창조 능력의 이 합동이, **지존하신 분**의 실체성의 바로 그 근원이다. 그러므로, 반사적인 창조 주기{週期}가 그 행로를 다 마치게 되면, **일곱 으뜸 영** 각자가 **낙원 삼위일체**와의 완전한 창조 동시성{同時性}을 이루게 됐을 때, 마흔아홉째 **반사하는 영**이 인격화를 마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신격 절대자** 안에 새롭고 멀리_미치는 반작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존하신 분**에게 새로운 인격 특권을 부여했고, 마침내 **위엄자**의 인격화를 초래했으며, 이 **위엄자**는 온갖 우주 전역에서 반사성 우두머리이고, 49명의 **반사하는 영**과 그 동역자들이 하는 전체 활동의 **낙원** 중심이다.

위엄자는 참된 인격자인데, 시간과 공간의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있는, 반사성 현상의 인격적 중심이고 전혀 오류 없는 중심이다. 그는 **일곱 으뜸 영**의 회합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 근처에 영구히 본부를 둔다. 그는 광범한 창조물 안에서 오로지 반사성 봉사에 대한 협조와 유지에만 관여하며; 우주 직무 경영에는 달리 관여하지 않는다.

위엄자는 우리의 **낙원** 인격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신격 절대자**와 기능적으로 접촉할 때 **지존하신 분**이 창조한, 유일하게 실존하는 신성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격자이지만, 이 한 국면의 우주 경륜에만 독자적으로 그리고 외견상 자동으로 관계되며; 현재 우주 인격체 가운데 다른 (반사하지 않는) 계층들과 관계하는 어떤 개인적 자격으로도 활동하지 않는다.

위엄자의 창조는, **지존하신 분**이 처음으로 행한 최상의 창조 행위를 돋보이게 했다. 실천하려는 이 의지는 **지존하신 분**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신격 절대자**의 엄청난 반응은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보나**가 영원에서 출현한 이후로는, 기능적 영 활동의 능력과 협조를 그토록 거대하고 광범위하게 조정하는 그런 엄청난 실체화를, 우주가 목격한 적이 없다. **지존하신 분**과 그 동역자들의 창조 의지에 대한 **신격** 반응은, 그들의 의도적 계획을 많이 뛰어넘었고, 그들의 개념적 예상을 크게 초과했다.

증진된 우주 협조라는 상상치 못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예상치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또 다른 존재들이 신격화되는 영역들에서 미래 시대가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 앞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갖고 서 있는데, 그 미래 시대에는 **지존자**와 **궁극자**가 새로운 수준의 신성{神性}에 도달하게 되고, 새로운 범위의 인격 역할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체험적 **신격**과 실존적 **낙원 삼위일체**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represented by the Master Spirits, to function as cocreators with the Paradise Trinity. This union of the creative power of the Supreme Creators with the creative potentials of the Trinity is the very source of the actuality of the Supreme Being. Therefore, when the cycle of reflective creation had run its course, when each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ad found perfect creative synchrony with the Paradise Trinity, when the forty-ninth Reflective Spirit had personalized, then a new and far-reaching reaction occurred in the Deity Absolute which imparted new personality prerogatives to the Supreme Being and culminated in the personalization of Majeston, the reflectivity chief and Paradise center of all the work of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nd their associat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17:2.3 (200.1) Majeston is a true person, the personal and infallible center of reflectivity phenomena in all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He maintains permanent Paradise headquarters near the center of all things at the rendezvou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e is concerned solely with the co-ordin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flectivity service in the far-flung creation; he is not otherwise involved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17:2.4 (200.2) Majeston is not included in our catalogue of Paradise personalities because he is the only existing personality of divinity created by the Supreme Being in functional liaison with the Deity Absolute. He is a person, but he is exclusively and apparently automatically concerned with this one phase of universe economy; he does not now function in any personal capacity with relation to other (nonreflective)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17:2.5 (200.3) The creation of Majeston signaled the first supreme creative act of the Supreme Being. This will to action was volitional in the Supreme Being, but the stupendous reaction of the Deity Absolute was not foreknown. Not since the eternity-appearance of Havona had the universe witnessed such a tremendous factualization of such a gigantic and far-flung alignment of power and co-ordination of functional spirit activities. The Deity response to the creative wills of the Supreme Being and his associates was vastly beyond their purposeful intent and greatly in excess of their conceptual forecasts.

17:2.6 (200.4) We stand in awe of the possibility of what the future ages, wherein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may attain new levels of divinity and ascend to new domains of personality function, may witness in the realms of the deitization of still other unexpected and undreamed of beings who will possess unimagined powers of enhanced universe co-ordination. There would seem to be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신격 절대자**가 반응하는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no limit to the Deity Absolute's potential of response to such unific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tial Deity and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3. 반사하는 영

49명의 **반사하는 영**이 **삼위일체** 기원에 해당되지만, 그들의 출현에 수반된 일곱 번의 창조 사건 각각은, 공동조상{共同祖上}인 **으뜸 영**의 특질을 사실상 닮은 유형의 존재가 생기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신성{神性} 특질을 연합하는, 일곱 가지 가능한 조합의 본성과 성품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각 연방우주 본부에 이 일곱 **반사하는 영**이 필연적이다.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듯이, 세 **낙원 신격**의 가능한 형태화의 모든 국면 각각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일곱 유형 가운데 각 유형마다 한 분씩 요구된다. 따라서 각 유형 중에서 한 분이 각 연방우주에 봉사하도록 적절하게 배정됐다. 서로 다른 일곱 **반사하는 영**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연방우주 수도{首都}에서 각 영역의 반사하는 초점{焦點}에 본부를 유지하며, 이것은 영적 양극{兩極}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사하는 영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는 이 명칭이 계시되지 않는다. 이 이름은 이 존재들의 본성 및 성품과 관계되고, **낙원**의 비밀 구체들에 있는 일곱 우주 신비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다.

반사성이라는 속성, 즉 **공동 행위자**, **지존하 신 분**, 및 **으뜸 영**들의 정신 수준에서 생기는 현상은, 이 광대한 우주 정보 계획의 작용과 관계되는 모든 존재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는데: **으뜸 영**들뿐 아니라 **낙원 신격**들은, **위엄자**의 이 연락 인격체 49명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으로 이 보편적 협조 반사성 능력을 드러내지는 않으며, 그렇지만 그들은 기묘하게 자질을 부여받은 이 존재들 전체의 창조자다. 신{神}이 물려주는 유전{遺傳}은, **창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피조물 안에 때때로 나타낸다.

위엄자와 **반사하는 영**들은 제외하고, 반사성 봉사에 참여하는 요원들은 모두, **무한한 영** 및 그의 직계{直系} 동역자들과 권속의 피조물이다. 각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은 자신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을 창조하는데, 이 **조력자**들은 **태고 향존자** 법정에서 **반사하는 영**들을 개인적으로 대변한다.

3. THE REFLECTIVE SPIRITS

17:3.1 (200.5)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re of Trinity origin, but each of the seven creative episodes attendant upon their appearance was productive of a type of being in nature resemb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ncestral Master Spirit. Thus they variously reflect the natures and characters of the seven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association of the divinity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have seven of these Reflective Spirit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One of each of the seven types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the perfect reflection of all phases of every possible manifest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s such phenomena might occur in any par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ne of each type was accordingly assigned to service in each of the superuniverses. These groups of seven dissimilar Reflective Spirits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at the reflective focus of each realm, and this is not identical with the point of spiritual polarity.

17:3.2 (200.6) The Reflective Spirits have names, but these designations are not revealed on the worlds of space. They pertain t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se beings and are a part of one of the seven universal mysteries of the secret spheres of Paradise.

17:3.3 (201.1) The attribute of reflectivity, the phenomenon of the mind levels of the Conjoint Actor, the Supreme Being, and the Master Spirits, is transmissible to all beings concerned in the working of this vast scheme of universal intelligence. And herein is a great mystery: Neither the Master Spirits nor the Paradise Deities, singly or collectively, disclose these powers of co-ordinate universal reflectivity just as they are manifested in these forty-nine liaison personalities of Majeston, and yet they are the creators of all these marvelously endowed beings. Divine heredity does sometimes disclose in the creature certain attributes which are not discernible in the Creator.

17:3.4 (201.2) The personnel of the reflectivity service, with the exception of Majeston and the Reflective Spirits, are all the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his immediate associates and subordinates. The Reflective Spirits of each superuniverse are the creators of their Reflective Image Aids, their personal voices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반사하는 영들은 단순히 전달하는 대리인이 아니며; 보존하는 인격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자손인 제2스라빔 역시 간직하는 인격체, 즉 기록하는 인격체다. 참된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중으로 등록되며, 한 부는, **반사하는 영**들의 방대한 참모진에 속하는, 수많은 계층의 제2스라빔 인격체 가운데 하나인 어떤 요원의 인격있는 장비{裝備} 속에 보관된다.

우주의 공식 기록은 천사 기록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 전달되지만, 진정한 영적 기록은 반사성에 의해 모아지고, **무한한 영** 계보에 속하는 적당하고 알맞은 인격체의 정신 속에 보존된다. 이것들은 우주의 형식적이고 죽은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기록이고, **무한한 영**의 기록하는 인격체들의 살아있는 정신 속에 완전하게 보존된다.

반사성 조직은 또한, 전체 창조물의 소식을 수집하고 명령을 배포하는 장치이다. 다양한 방송 업무가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조직은 끊임없이 운영된다.

지방우주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중요한 것은, 그 연방우주 본부에 내재적으로 반사 된다. 그리고 거꾸로, 지방우주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은, 그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지방우주 수도를 향해 바깥으로 반사된다. 시간세계의 우주들로부터 연방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반사성 봉사는, 외견상 자동적이거나 스스로 작동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두 매우 개인적이고 지성적이며; 그 정확성은 인격체 협동의 완전성 때문에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들의 비인격 현존과 실행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고 조율사들은 우주의 반사성 체계의 작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아버지** 단편이 이 진행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현 우주 시대 동안, **낙원** 외부 반사성 봉사의 공간 범위는 일곱 연방우주 주변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에는, 이 봉사 기능이 시간과 공간에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준절대 우주 회로{回路}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각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성 조직은 분리된 단위로 행동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이 1,000년마다 인사를 나눌 때, 그리고 빛과 생명에 전체 지방우주가 정착됨에 따라서 생기는 축제의 경우처럼, **위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곱 명 전체가 보편적으로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17:3.5 (201.3) The Reflective Spirits are not merely transmitting agents; they are retentive personalities as well. Their offspring, the seconaphim, are also retentive or record personalities. Everything of true spiritual value is registered in duplicate, and one impression is preserved in the personal equipment of some member of one of the numerous orders of seconaphic personalities belonging to the vast staff of the Reflective Spirits.

17:3.6 (201.4) The formal records of the universes are passed up by and through the angelic recorders, but the true spiritual records are assembled by reflectivity and are preserved in the minds of suitable and appropriate personalities belonging to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se are the *live* records in contrast with the formal and *dead* records of the universe, and they are perfectly preserved in the living minds of the recording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17:3.7 (201.5) The reflectivity organization is also the news-gathering and the decree-disseminating mechanism of all creation. It is in constant operation in contrast with the periodic functioning of the various broadcast services.

17:3.8 (201.6) Everything of import transpiring on a local universe headquarters is inherently reflected to the capital of its superuniverse. And conversely, everything of local universe significance is reflected outward to the local universe capitals from the headquarters of their superuniverse. The reflectivity service from the universes of time up to the superuniverses is apparently automatic or self-operating, but it is not. It is all very personal and intelligent; its precision results from perfection of personality co-operation and therefore can hardly be attributed to the impersonal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17:3.9 (201.7) While Thought Adjusters do not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al reflectivity system,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all Father fragments are fully cognizant of these transactions and are 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ir content.

17:3.10 (201.8)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pace range of the extra-Paradise reflectivity service seems to be limited by the peripher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therwise, the function of this service seems to b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It appears to be independent of all known subabsolute universe circuits.

17:3.11 (201.9)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 reflective organization acts as a segregated unit; but on certain special occasions, under the direction of Majeston, all seven may and do act in universal unison, as in the event of the jubilee occasioned by the settling of an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and at the times of the

millennial greeting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반사하는 영들이 49명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를 창조했으며, 각 연방우주 본부마다 정확하게 일곱 **조력자**가 있다. **우버사**의 일곱 **반사하는 영**의 최초 창조 행위는, 그들의 일곱 **형상 조력자**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각 **반사하는 영**마다 자신의 **조력자**를 창조했다. **형상 조력자**는, 확실한 속성과 특질에서, **반사하는 어머니 영**의 완전한 복제품(複製品)이며; 반사성이라는 속성을 제외한 실질적 복제품이다. 그들은 진정한 형상이며, **반사하는 영**과 연방우주 당국 사이의 소통 경로로서 계속 활약한다. **형상 조력자**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며; 각자 자신의 **영** 조상의 실제 대변자이며; 형상이고, 그 이름에 어울린다.

반사하는 영 자신은 진정한 인격체이지만, 물질 존재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속한다. 심지어 연방우주 본부 구체에서도,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 및 그들의 동역자들과 갖는 모든 개인적 교통에, **형상 조력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형상 조력자들**과 **태고 항존자들** 사이의 접촉에서, 때로는 한 명의 **조력자**가 마음에 들도록 작용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전송에 위임된 소통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제시를 위해, 둘, 셋, 넷, 또는 심지어 일곱 명 전체가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통신 내용이 요구하는 대로, **형상 조력자**들의 메시지를, 세 **태고 항존자** 중에서 한 분, 두 분, 또는 세 분 전체가 다양하게 받는다.

형상 조력자는, 그 선조(先祖) **영** 앞에서 영구히 봉사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2스랍도우미 무리를 마음대로 둘 수 있다. **형상 조력자**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훈련 세계들과 관련해서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우주 계획의 정보 부서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지만, 너희는 **우버사** 학교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과 직접 접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외견상 인격 있는 이 존재들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며; 그들은 선택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형상인데, 개별 **영** 조상 인격과 정신을 전적으로 반영한다. 한 부류로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반사성과 직접 접하지 않는다. 반사하는 본성을 갖는 어떤 존재가, 봉사의 실제 작동과 너희 사이에 항상 끼어 있을 것이다.

5. 일곱 회로 영

4. THE REFLECTIVE IMAGE AIDS

17.4.1 (202.1) The forty-nine Reflective Image Aids were created by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re are just seven Aid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 first creative act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of Uversa was the production of their seven Image Aids, each Reflective Spirit creating his own Aid. The Image Aids are, in certain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perfect reproductions of their Reflective Mother Spirits; they are virtual duplications minus the attribute of reflectivity. They are true images and constantly function as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 superuniverse authorities. The Image Aids are not merely assistants; they are actual representations of their respective Spirit ancestors; they are *images*, and they are true to their name.

17.4.2 (202.2) The Reflective Spirits themselves are true personalities but of such an order as to be incomprehensible to material beings. Even on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sphere they require the assistance of their Image Aids in all personal intercourse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In contacts between the Image Aids and the Ancients of Days, sometimes one Aid functions acceptably, while on other occasions two, three, four, or even all seven are required for the full and proper presentation of the communication intrusted to their transmission. Likewise, the messages of the Image Aids are variously received by one, two, or all three Ancients of Days, as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may require.

17.4.3 (202.3) The Image Aids serve forever by the sides of their ancestral Spirits, and they have at their disposal an unbelievable host of helper seconaphim. The Image Aids do not directly function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worlds of ascending mortals.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telligence service of the universal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but you will not personally come in contact with them when you sojourn in the Uversa schools because these seemingly personal beings are devoid of will; they do not exercise the power of choice. They are true images, wholly reflective of the personality and mind of the individual Spirit ancestor. As a class, ascending mortals do not intimately contact with reflectivity. Always some being of the reflective nature will be interposed between you a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ervice.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하보나 회로의 **일곱 영**은,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 대한, **무한한 영**과 **일곱 으뜸 영**의 비인격 공동 대리자다. 그들은 **으뜸 영**들의 부하인데, 집단으로 **으뜸 영**들의 자손이다. **으뜸 영**들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뚜렷하고 다각적인 경영적{經營的} 개성을 제공한다. 그들은 확실적인 이 **하보나 회로 영**들을 통해서, 중앙우주에 대한 통합되고, 확 일적이고, 조화된 영적 감독{監督}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곱 회로 영은 각각 단일 **하보나 회로**에 제한하도록 제한된다. 그들은, **영원 항존자**들, 즉 개별 **하보나** 세계의 통치자 체제와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지존하신 분**의 중앙우주 현존과 동시성{同時性}을 갖는다. 그들의 업무는 전적으로 **하보나**에 국한된다.

이 **회로 영**들은, 그들 각자의 자손, 즉 3차 최고스라빔을 통하여, **하보나**에 머물고 있는 자들과 접촉을 이룩한다. **회로 영**들이 **일곱 으뜸 영**과 공존하는 반면, 3차 최고스라빔의 창조에서 그들의 기능은, 시간세계의 첫 순례자들이 **그랜한다** 시대에 **하보나** 외부 회로에 도달할 때까지, 주요 탁월함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보나에서 너희가 한 회로에서 다음 회로로 전진함에 따라, **회로 영**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즐기고 그것의 비인격 현존을 인식함에도, 그들과 친히 교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로 영과 **하보나** 원주민 거주자의 관계는, 진화 우주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필사 피조물과 **사고 조율사**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사고 조율사**와 마찬가지로, **회로 영**은 비인격이며, **하보나** 존재들의 완전한 정신과 사귀는데, 이는 **만유의 아버지의** 비인격 영이 필사적 사람의 유한한 정신에 내주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회로 영**은 결코 **하보나** 인격체의 영구적인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6.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들의 본성과 기능에 속하는 많은 것이, 지방 창조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과제에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에 잘 포함되겠지만;이 기묘한 존재들이 지방우주가_생기기_전에 겪은 체험 가운데 많

17:5.1 (202.4)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are the joint impersona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to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servants of the Master Spirits, whose collective offspring they are. The Master Spirits provide a distinct and diversified administrative individuality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hrough these uniform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they are enabled to provide a unified, uniform, and co-ordinated spiritual supervision for the central universe.

17:5.2 (202.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are each limited to the permeation of a single Havona circuit. They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regimes of the Eternals of Days, the rulers of the individual Havona worlds. But they are in liaison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synchronize with the central universe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Their work is wholly confined to Havona.

17:5.3 (203.1) These Spirits of the Circuits make contact with those who sojourn in Havona through their personal offspring, the tertiary supernaphim. While the Circuit Spirits are coexistent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their function in the creation of tertiary supernaphim did not attain major importance until the first pilgrims of time arrived on the outer circuit of Havona in the days of Grandfanda.

17:5.4 (203.2) As you advance from circuit to circuit in Havona, you will learn of the Spirits of the Circuits, but you will not be able to hold personal communion with them, even though you may personally enjoy, and recognize the impersonal presence of, their spiritual influence.

17:5.5 (203.3) The Circuit Spirits are related to the native inhabitants of Havona much as the Thought Adjusters are related to the mortal creatures inhabiting the world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Like the Thought Adjusters, the Circuit Spirits are impersonal, and they consort with the perfect minds of Havona beings much as the impersonal spirits of the Universal Father indwell the finite minds of mortal men. But the Spirits of the Circuits never become a permanent part of Havona personalities.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17:6.1 (203.4) Much that pertains to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properly belongs to the narrative of their association with the Creator Sons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은 특색을, 일곱 **최상급 영** 집단에 대한 이 이야기의 일부로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여섯 국면에 관해 잘 알며, 일곱째 활동 단계의 가능성에 관하여 많이 생각한다. 이 색다른 실존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낙원 분화(分化): 창조주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행위로 인격화될 때,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서는 “최상의 보충 반응”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의 본질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공동 창조주**의 창조 잠재력에 포함된, 인격화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수정됨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격 **창조주 아들**의 탄생은, 이 **낙원 아들**의 미래 지방우주 배우자(配偶者)의 잠재력이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서 탄생할 것을 알리는 신호다. 우리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이 인격이전(人格以前) 신분 증명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창조주 아들**의 생애에 관한 **낙원** 기록에 이 사실이 언급돼 있다는 것은 안다.

2. **창조주신분 예비 훈련.** 우주의 조직과 경영에서 **미가엘 아들**의 긴 예비(豫備) 훈련 기간에, 그의 미래 배우자는 실재의 발전을 더 겪고 운명을 집단으로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측하건대, 그런 집단 의식을 가진 실재는 공간을 인지하게 되고, 우주 창조와 경영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가엘**과 협동하는 미래 업무에서 영의 솜씨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그 예비 훈련을 시작한다.

3. **물리적 창조 단계.**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 신분 책임을 **미가엘 아들**에게 부과할 때, 이 새로운 **창조주 아들**이 가도록 돼있는 연방우주를 지휘하는 **으뜸 영**이, **무한한 영** 앞에서 “신원확인 탄원(歎願)”을 표명하며;처음으로, 차후의 **창조적 영**의 실재가 **무한한 영**의 인격자로부터 분화(分化)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청원하는 **으뜸 영** 인격자에게 직접 나아가면서, 이 실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 즉시 사라지는데, 이 **으뜸 영** 인격자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롭게 신분이 확인된 **창조적 영**은, 공간의 모험을 위해 **창조주 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으뜸 영**과 함께 남아 있으며;그 후에 **으뜸 영**은 새로운 **영(靈)** 배우자를 **창조주 아들**의 보호 아래에 위탁(委託)하는데, 그와 동시에 영원히 충실하고 끊임없이 충성할 책임을 **영** 배우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나서, **낙원**에서 일찍이 생긴 가장 심오하게 감동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발생한다.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영원한 합동을 승인하면서, 연방우주 관할권을 갖는 **으뜸 영**이 어떤 공동 경영

creations; but there are many features of the prelocal universe experiences of these marvelous beings which may be narrated as a part of this discussion of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17:6.2 (203.5) We are conversant with six phases of the career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we speculate much concerning the probability of a seventh stage of activity. These different stages of existence are:

17:6.3 (203.6) 1. *Initial Paradise Differentiation.* When a Creator Son is personalized by the joint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simultaneously there occurs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what is known as the “supreme reaction of complement.” We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is reaction, but we understand that it designates an inherent modification of those personalizable possibilities which are embraced within the creative potential of the Conjoint Creator. The birth of a co-ordinate Creator Son signals the birth with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potential of the future local universe consort of this Paradise Son. We are not cognizant of this new prepersonal identification of entity, but we know that this fact finds place on the Paradise records of the career of such a Creator Son.

17:6.4 (203.7) 2. *Preliminary Creatorship Training.* During the long period of the preliminary training of a Michael Son in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universes, his future consort undergoes further development of entity and becomes group conscious of destiny. We do not know, but we suspect that such a group-conscious entity becomes space cognizant and begins that preliminary training requisite to the acquirement of spirit skill in her future work of collaboration with the complementary Michael in universe creation and administration.

17:6.5 (204.1) 3. *The Stage of Physical Creation.* At the time the creatorship charge is administered to a Michael Son by the Eternal Son, the Master Spirit who directs the superuniverse to which this new Creator Son is destined gives expression to the “prayer of identification” in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and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of the subsequent Creative Spirit appears as differentiated from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proceeding directly to the person of the petitioning Master Spirit, this entity is immediately lost to our recognition, becoming apparently a part of the person of this Master Spirit. The newly identified Creative Spirit remains with the Master Spirit until the moment of the departure of the Creator Son for the adventure of space; whereupon the Master Spirit commits the new Spirit consort to the keeping of the Creator Son, at the same time administering to the Spirit consort the charge of eternal fidelity and unending loyalty.

권을 증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와 결합된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은,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는 모험을 하기 위해 출발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우주를 물질적으로 조직하는 길고 어려운 기간 내내, 이 연합체 형태로 함께 일한다.

4. **생명_창조 시절** **창조주 아들**이 생명을 창조하려는 의도를 선포함에 따라서, **낙원**에서는 “인격화 예식(禮式)”이 이뤄지는데, **일곱 으뜸 영**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오름 영**이 몸소 이를 체험한다. 이것은 **창조주 아들**의 **영** 배우자의 개체성에 **낙원 신격**이 기여하는 것이며, **무한한 영** 인격자 안에서 생기는 “1차 분출” 현상으로 우주에 나타나게 된다. **낙원**에서 이 현상이 생김과 동시에, 지금까지 비인격이었던 **창조주 아들**의 **영** 배우자는, 모든 실용적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한 인격자가 된다. 그 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이 동일한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한 인격자로 간주될 것이며, 이어지는 생명 창조로 생기는 인격체 무리 전체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5. **증여 이후 시대**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일곱째 증여를 완성한 후에, 그리고 완전한 우주 주권을 획득한 후에 우주 본부로 돌아갈 때, **창조적 영**의 끝없는 생애에는 또 다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소집된 우주 경영자들 앞에서, 승리한 **창조주 아들**은 **우주 어머니 영**을 공동 주권으로 상승시키고 **영** 배우자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수립됨에 따라서, 우주 공동주권자는 **창조적 영**의 생애에서 여섯째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체험의 본질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네바돈**에서 미래의 진화 단계에 속한다.

7. **계시되지 않은 생애** 우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이 여섯 국면을 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생애가 있는가? 우리는, 완결성취자들이 필사자로서 상승하는 중에 마지막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여섯째 단계의 **영** 생애로 들어간다고 기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완결성취자들이 우주 임무에서 또 하나의 계시되지 않은 생애를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추측한

And then occurs one of the most profoundly touching episodes which ever take place on Paradise. The Universal Father speaks in acknowledgment of the eternal unio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and in confirmation of the bestowal of certain joint powers of administration by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17:6.6 (204.2) The Father-united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then go forth on their adventure of universe creation. And they work together in this form of association throughout the long and arduous period of the material organization of their universe.

17:6.7 (204.3) 4. *The Life-Creation Era.* Up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create life by the Creator Son, there ensue on Paradise the “personalization ceremonies,” participated in by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personally experienced by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This is a Paradise Deity contribution to the individuality of the Spirit consort of the Creator Son and becomes manifest to the universe in the phenomenon of “the primary eruption”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Simultaneously with this phenomenon on Paradise, the heretofore impersonal Spirit consort of the Creator Son become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a bona fide person. Henceforth and forevermore, this sam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will be regarded as a person and will maintain personal relations with all the personality hosts of the ensuing life creation.

17:6.8 (204.4) 5. *The Postbestowal Ages.* Another and great change occurs in the never-ending career of a Creative Spirit when the Creator Son returns to universe headquarters after the completion of his seventh bestowal and subsequent to his acquirement of full universe sovereignty. On that occasion, before the assembled administrators of the universe, the triumphant Creator Son elevates the Universe Mother Spirit to cosovereignty and acknowledges the Spirit consort as his equal.

17:6.9 (204.5) 6. *The Ages of Light and Life.*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 local universe cosovereign enters upon the sixth phase of a Creative Spirit's career. But we may not portray the nature of this great experience. Such things pertain to a future stage of evolution in Nebadon.

17:6.10 (204.6) 7. *The Unrevealed Career.* We know of these six phases of the career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sk: Is there a seventh career? We are mindful that, when finalizers attain what appears to be their final destiny of mortal ascension, they are of record as entering upon the career of sixth-stage spirits. We conjecture that there awaits the finalizers still another and unrevealed career in

다. **우주 어머니 영**들이 앞으로 어떤 발견되지 않은 생애를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간주하리라는 점이 유일하게 기대되는데, 그 생애는 우주 봉사를 몸소 체험하는, 그리고 **창조주 미가엘** 계층과 함께 충성스럽게 협동하는, 일곱째 국면을 구성할 것이다.

7. 보조 정신_영

이 보조{補助} 영들은, **창조주 아들**과 그런 **창조적 영**의 공동 창조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 증여한 칠중{七重} 정신이다. 이 증여는, 그 영이 인격 특권을 갖는 신분으로 증진되는 그때에 가능하게 된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본성과 기능발휘에 대한 설명은, 너희 **네바돈** 지방우주에 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당하다.

8. 최상급 영의 역할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무한한 영**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공동 행위자**로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기능상 계보의 핵을 구성한다. **최상급 영**들의 영토는, **낙원**에 있는 **삼위일체** 현존으로부터, 공간의 행성들에서 진화_필사자 계층 정신의 기능발휘까지 확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강하는 경영 수준들을 통합하고, 그 요원들의 다중{多重} 역할을 조화시킨다. **반사하는 영** 집단이 **태고 항존자**와 접촉하든지, **창조적 영**이 **미가엘 아들**과 제휴해서 활동하든지, 또는 **일곱 으뜸 영**이 **낙원 삼위일체** 주변에 회로화 되든지 상관없이,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어디서든지, **최상급 영**의 활동과 마주치게 된다. 이들은 “**항존자**” 계층의 **삼위일체** 인격체들, 그리고 “**아들**” 계층의 **낙원** 인격체들과 똑같이 활동한다.

최상급 영 집단은 **무한한 어머니 영**과 함께, **제3 근원 및 중심**의 방대한 피조물 계통을 직접 창조한 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돌보는 영들이 이 연합체에서 태어난다. 1차 최고스라빔은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며; 이 계층의 2차 존재는 **으뜸 영**들이 창조하며; 3차 최고스라빔은 **일곱 회로 영**이 창조한다. **반사하는 영**들은, 집단으로, 놀라운 계층의 천사 무리, 즉 연방우주 봉사에 해당하는 전능한 제2스라빔의 어머니요_제작자다. 한 **창조적 영**이 한 지방 창조 천사 계층들의 어머니이며; 그런 스랍 사역자들은 중앙우주 원형을 닮았다 하더라도 각 지방우주마다 독창적이다. 중앙에 거하는 **무한한 영**, 즉 모든 천사 사역자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어머니는, 돌보는 영들을 지은, 이 모든 창조자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뿐이다.

universe assignment. It is only to be expected that we would likewise regard the Universe Mother Spirits as having ahead of them some undisclosed career which will constitute their seventh phase of personal experience in universe service and loyal co-operation with the order of the Creator Michaels.

7. THE ADJUTANT MIND-SPIRITS

17:7.1 (205.1) These adjutant spirits are the sevenfold mind bestowal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upon the living creatures of the conjoint creation of a Creator Son and such a Creative Spirit. This bestowal becomes possible at the time of the Spirit's elevation to the status of personality prerogatives. The narration of the nature and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belongs more appropriately to the story of your local universe of Nebadon.

8. FUNCTIONS OF THE SUPREME SPIRITS

17:8.1 (205.2) The seven groups of Supreme Spirits constitute the nucleus of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oth as the Infinite Spirit and as the Conjoint Actor. The domain of the Supreme Spirits extends from the presence of the Trinity on Paradise to the functioning of mind of the evolutionary-mortal order on the planets of space. Thus do they unify the descending administrative levels and co-ordinate the manifold functions of the personnel thereof. Whether it is a Reflective Spirit group in liaison with the Ancients of Days, a Creative Spirit acting in concert with a Michael Son, or the Seven Master Spirits encircuited around the Paradise Trinity, the activity of the Supreme Spirits is encountered everywhere in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They function alike with the Trinity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Days” and with the Paradise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Sons.”

17:8.2 (205.3) Together with their Infinite Mother Spirit, the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immediate creators of the vast creature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ll orders of the ministering spirits spring from this association. Primary supernaphim originate in the Infinite Spirit; secondary beings of this order are created by the Master Spirits; tertiary supernaphim by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The Reflective Spirits, collectively, are the mother-makers of a marvelous order of the angelic hosts, the mighty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 services. A Creative Spirit is the mother of the angelic orders of a local creation; such seraphic ministers are original in each local universe, though they are fashioned after the patterns of the central universe. All these creators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인간거주 창조계를 조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즉 **일곱 으뜸 영**의 연합체가, **칠중 하나님**의 광범한 활동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1. 집단으로, **으뜸 영**들은 **낙원 신격**들의 **삼위 일체** 신성{神性} 수준과 거의_동등하다.

2. 개별적으로, 그들은 삼중 **신격**의 1차 연합 가능성을 다 소진시킨다.

3. **공동 행위자**의 다양한 대행자로서, 그들은 그가 아직 직접 행사하지 않은 **지존하신 분**의 그 영_정신_권능의 주권을 저장{貯藏}한 자다.

4. **반사하는 영**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주 반사성의 **낙원** 중심인 **위엄자**와,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우주 정부를 동조{同調}시킨다.

5. 지방우주의 **신성한 사역자**들을 개별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으뜸 영**들은 **칠중 하나님**의 마지막 수준, 즉 지방우주들의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합동에 기여한다.

공동 행위자 안에 본래부터 있는 기능상 통일은, 그의 1차 인격체인 **일곱 으뜸 영** 안에서, 진화하는 우주에 노출된다. 그러나 미래에 완전하게 될 연방우주들에서는, 이 통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존자**의 체험적 주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of ministering spirits are only indirectly assisted by the central lodgment of the Infinite Spirit, the original and eternal mother of all the angelic ministers.

17:8.3 (205.4)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co-ordinators of the inhabited creation. The association of their directing heads, the Seven Master Spirits, appears to co-ordinate the far-flung activities of God the Sevenfold:

17:8.4 (205.5) 1. Collectively the Master Spirits near-equivalate to the divinity level of the Trinity of Paradise Deities.

17:8.5 (205.6) 2. Individually they exhaust the primary associable possibilities of triune Deity.

17:8.6 (206.1) 3. As diversified representatives of the Conjoint Actor they are the repositories of that spirit-mind-power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which he does not yet personally exercise.

17:8.7 (206.2) 4. Through the Reflective Spirits they synchronize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Majeston, the Paradise center of universal reflectivity.

17:8.8 (206.3) 5. In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local universe Divine Ministers, the Master Spirits contribute to the last level of God the Sevenfold, the Creator Son-Creative Spirit union of the local universes.

17:8.9 (206.4) Functional unity, inherent in the Conjoint Actor, is disclosed to the evolving universe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his primary personalities. But in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of the future this unity will undoubtedly be inseparable from the experienti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17:8.10 (206.5)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18편.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

⇨ 017

유랜시아 책

019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 18편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

섹션

소개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2. 영원 항존자
3. 태고 항존자
4. 완성 항존자
5. 최근 항존자
6. 합동 항존자
7. 충실 항존자

소개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모두 특별한 봉사를 위해 창조됐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성한 **삼위일체**가 그들을 고안{考案}했으며, 그들은 완전한 기법과 완결된 헌신으로 이바지할 자격을 갖췄다.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에는 일곱 계층이 있다: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2. **영원{永遠} 항존자{恒存者}.**
3. **태고{太古} 항존자.**
4. **완전성{完全性} 항존자.**
5. **최근{最近} 항존자.**
6. **합동{合同} 항존자.**
7. **충실{忠實} 항존자.**

경영상으로 완전한 이 존재들의 숫자는 정해졌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창조된 것은 과거의 사건이며; 더 이상 인격화되지 않는다.

PAPER 18

TH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2. The Eternals of Days
3. The Ancients of Days
4. The Perfections of Days
5. The Recents of Days
6. The Unions of Days
7. The Faithfuls of Days

INTRODUCTION

18:0.1 (207.1)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are all created for specific service. They are designed by the divine Trinity for the fulfillment of certain specific duties, and they are qualified to serve with perfection of technique and finality of devotion. There are seven orders of th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 18:0.2 (207.2)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 18:0.3 (207.3) 2. Eternals of Days.
- 18:0.4 (207.4) 3. Ancients of Days.
- 18:0.5 (207.5) 4. Perfections of Days.
- 18:0.6 (207.6) 5. Recents of Days.
- 18:0.7 (207.7) 6. Unions of Days.
- 18:0.8 (207.8) 7. Faithfuls of Days.

18:0.9 (207.9) These beings of administrative perfection are of definite and final numbers. Their creation is a past event; no more are being personalized.

이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광우주 전역에서 **낙원 삼위일체**의 경영 정책을 대변하며; 정보를 대변하고, **낙원 삼위일체**의 행정 판결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낙원** 구체들에서 지방우주 본부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구성분자인 성좌수도{首都}들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경영상으로 완전한 상호 관련된 계통을 형성한다.

삼위일체에서 _기원된 존재는 모두, 신성한 전체 속성을 띠고, **낙원** 완전성으로 창조된다. 오직 체험 영역에서만, 시공우주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들의 자질에 시간 흐름이 추가돼 왔다. **삼위일체**에서 _기원된 존재들에게는, 태만할 위험성이나 반역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들은 신성 본질을 지녔고, 신성하고 완전한 인격체의 운영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1.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

낙원 위성들 중에서 가장 안쪽 회로에는 일곱 세계가 있고, 10명의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로 구성된 단체가, 이 고양된 각각의 세계를 관장한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최상의 궁극적인 경영자다. 이 일곱 형제 단체의 직무를 운영하는 것은, 70명의 이 최상급 지휘자 단체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 **삼위일체**의 자녀가, **낙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성시되는 일곱 단체를 감독하지만, 이 세계들 집단은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회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들은, 협조 및 공동 지휘자로서 열 명씩 무리지어 각 구체에서 활동하지만, 특별한 책임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 특별한 세계들 각각의 업무는, 일곱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이 협조 통치자 가운데 하나가, 전문화된 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각 부서를 관장한다.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일곱 명에 대한 관계에서 삼중 **신격**의 개인 대행자로 행동하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또 하나는 **아들**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을 대행한다.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들을 특징짓는 분명한 등급 유사성이 있더라도, 그들은 뚜렷한 일곱 가지 특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디비닝톤**의 직무를 맡은 열 명의 최상급 지휘자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적 성품과 본성을 반사하며; 이 일곱 단체가 각각 그렇게 하는데; 열 명의 각 집단은 자기 관할의 특질을 나타내는 **신격** 또는 **신격** 연합체를 낳는다. **어센딩톤**을 통치하는 열 명의 지휘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혼합된 본성을 반영한다.

18:0.10 (207.10)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s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represent the administrative policies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represent the justice and are the executive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form an interrelated line of administrative perfection extending from the Paradise spheres of the Father to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o the capitals of their component constellations.

18:0.11 (207.11) All Trinity-origin beings are created in Paradise perfection in all their divine attributes. Only in the realms of experience has the passing of time added to their equipment for cosmic service. There is never any danger of default or risk of rebellion with Trinity-origin beings. They are of divinity essence, and they have never been known to depart from the divine and perfect path of personality conduct.

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18:1.1 (207.5) There are seven worlds in the innermost circuit of the Paradise satellites, and each of these exalted worlds is presided over by a corps of ten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y are not creators, but they are supreme and ultimate administrators.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se seven fraternal spheres is wholly committed to this corps of seventy supreme directors. Though the offspring of the Trinity supervise these seven sacred spheres nearest Paradise, this group of worlds is universally known as the personal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18:1.2 (208.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function in groups of ten as co-ordinate and joint directors of their respective spheres, but they also function individually in particular fields of responsibility. The work of each of these special worlds is divided into seven major departments, and one of these co-ordinate rulers presides over each such division of specialized activities. The remaining three act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riune Deity in relation to the other seven, one representing the Father, one the Son, and one the Spirit.

18:1.3 (208.2) Although there is a definite class resemblance which typifies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y also disclose seven distinct group characteristics. The ten supreme directors of Divinington affairs are reflective of the personal character and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o it is with each of these seven spheres: Each group of ten resembles that Deity or Deity assoc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ir domain. The ten directors who rule Ascendington are reflective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Father,

나는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에 있는 이 높은 인격체들의 활동에 대해 거의 드러낼 수 없는데, 그들은 정말로 **지존성 비밀**이기 때문이다.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또는 무한한 영**에게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독단적인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격**들은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는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 같지만, **지존성 비밀**들 전체를 완전히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의 칠중 집단화와 함께, **신격** 연합체의 인격 비밀을 담고 있는 영역을 언제든지 충분히 통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최상급 지휘자들의 업무는, 기본적인 이 일곱 집단의 우주 존재들이 이런 일곱 특별 세계에 거주했을 때, 또는 광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신격**들이 그들과 긴밀하게 몸소 접촉하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그러므로 이런 아주 개인적인 관계와 특별한 접촉을 신성하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낙원 창조주**들은, 하위 피조물의 경우에도, 그 인격체의 사적{私的}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그리고 다양한 독립된 계층의 모든 인격체에게도 해당된다.

높은 우주 달성을 이룩한 존재에 대해서도, 이 비밀 세계들은 충성심에 대한 시험으로 계속 남아 있다. 영원한 **하나님**들을 완전하게 친히 아는 것, 즉 신성과 완전성으로 이뤄진 그들의 성품을 자유롭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만, **낙원 통치자**들이 피조 존재 전체와 맺는 개인적 관계 전체를 충분히 통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2. 영원 항존자

하보나의 10억 세계 각각을,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가 감독한다. 이 통치자들은 **영원 항존자**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10억 명인데, 각 **하보나** 구체마다 한 명씩이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후손이지만, **지존성 비밀**과 마찬가지로, 기원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 두 집단의 온전히 _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낙원 하보나** 체계에 있는 정교한 세계들을 영원토록 통치해 왔으며, 교대 또는 재배치됨 없이 활동한다.

영원 항존자들은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는,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의 눈에 보인다. 그들은 규칙적인 행성 비밀회의를 주재{主宰}한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교대로, 일곱 연방우주 본부 구체를 방문한다. 그들은, 일곱 연방정부의 운명을 관장하는 **태고 항존자**들과 혈통적으로 가깝고 신성하게 동일하다. **영원 항존자**가 자신의 구체에서 자리를 비울 때, 그의 세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지시를 받는다.

Son, and Spirit.

18:1.4 (208.3) I can reveal very little about the work of these high personalities on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for they are truly the *Secrets of Supremacy*. There are no arbitrary secrets associated with th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or the Infinite Spirit. The Deities are an open book to all who attain divine perfection, but all the *Secrets of Supremacy* can never be fully attained. Always will we be unable fully to penetrate the realms containing the personality secrets of Deity association with the sevenfold grouping of created beings.

18:1.5 (208.4) Since the work of these supreme directors has to do with the intimate and personal contact of the Deities with these seven basic groupings of universe beings when domiciled on these seven special worlds or while functioning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t is fitting that these very personal relations and extraordinary contacts should be held sacredly secret. The Paradise Creators respect the privacy and sanctity of personality even in their lowly creatures. And this is true both of individuals and of the various separate orders of personalities.

18:1.6 (208.5) To beings of even high universe attainment these secret worlds ever remain a test of loyalty. It is given us fully and personally to know the eternal Gods, freely to know their characters of divinity and perfection, but it is not granted us fully to penetrate all of the personal relations of the Paradise Rulers with all of their creature beings.

2. THE ETERNALS OF DAYS

18:2.1 (208.6) Each of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is directed by a Supreme Trinity Personality. These rulers are known as the Eternals of Days, and they number exactly one billion, one for each of the Havona spheres. They are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but like the *Secrets of Supremacy* there are no records of their origin. Forever have these two groups of all-wise fathers ruled their exquisite world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and they function without rotation or reassignment.

18:2.2 (208.7) The Eternals of Days are visible to all will creatures dwelling in their domains. They preside over the regular planetary conclaves. Periodically, and by rotation, they visit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close of kin to, and are the divine equals of, the Ancients of Days,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governments. When an Eternal of Days is absent from his sphere, his world is directed by a Trinity Teacher Son.

하보나 원주민, 그리고 중앙우주의 다른 생물 {生物} 등과 같은, 확립된 생명체 계층들의 경우 이외에,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들은 완전히 자신의 개인 관념과 이상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구체를 발전시켜 왔다. 그들은 서로의 행성을 방문하지만, 복사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으며; 그것들은 항상, 전적으로 독창적이다.

건축물, 자연적 장식물, 모론시아 구조물, 그리고 영 창조계는, 각 구체마다 독자적이고 독특하다. 각각의 세계는 영구히 아름다운 처소이고, 중앙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세계와도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너희는,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독특하고 감동적인 각각의 구체들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낙원**을 향해 **위쪽**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세계에서 자연스럽지만, 신성한 상승 목표를 향해 **안쪽**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3. 태고 항존자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은, 지방우주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훈련 세계에서 졸업하고 연방우주 교육 구체로 승진할 때, **태고 항존자**들을 포함해서, 이 증진된 영역의 높은 영적 통치자 및 지휘자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영적 발전이 진행됐다.

태고 항존자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삼위일체**의 혼합된 성품과 통합된 본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개체성을 소유하고, 그들의 인격은 다양하지만, **일곱 으뜸 영**의 경우처럼 서로 다르지는 않다. 그밖에 다양한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그들은 한결같은 지도력을 제공하는데, 이 연방우주들은 각각 뚜렷하고 분리되고 독특한 창조물이다. **일곱 으뜸 영**은 본성과 속성에서 서로 다르지만, 연방우주를 친히 통치하는 **태고 항존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후손이며, 모두 균일하고 초월적으로 완전하다.

높은 곳에 있는 **일곱 으뜸 영**이 그들 각자의 연방우주 본성을 결정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은 동일한 이 연방우주의 경영을 지휘한다. 그들은 창조적 다양성에 경영상 확일성을 첨가하고, 일곱 분단으로 집단화된 광우주의 근원에 창조적 차이가 있음에도, 전체의 조화(調和)를 보장한다.

태고 항존자들은 모두 동시에 삼자일체됐다. 그들은 온갖 우주에서 인격체가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태고 항**

18:2.3 (209.1) Except for the established orders of life, such as the Havona natives and other living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the resident Eternals of Days have developed their respective spheres entirely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personal ideas and ideals. They visit each other's planets, but they do not copy or imitate; they are always and wholly original.

18:2.4 (209.2) The architecture, natural embellishment, morontia structures, and spirit creations are exclusive and unique on each sphere. Every world is a place of everlasting beauty and is wholly unlike any other world in the central universe. And you will each spend a longer or shorter time on each of these unique and thrilling spheres on your way inward through Havona to Paradise. It is natural, on your world, to speak of Paradise as *upward*, but it would be more correct to refer to the divine goal of ascension as *inward*.

3. THE ANCIENTS OF DAYS

18:3.1 (209.3) When mortals of time graduate from the training worlds surrounding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and are advanced to the educational spheres of their superuniverse, they have progressed in spiritual development to that point where they are able to recognize and communicate with the high spiritual rulers and directors of these advanced realms, including the Ancients of Days.

18:3.2 (209.4) The Ancients of Days are all basically identical; they disclose the combined character and unified nature of the Trinity. They possess individuality and are in personality diverse, but they do not differ from each other as do the Seven Master Spirits. They provide the uniform directorship of the otherwise differing seven superuniverses, each of which is a distinct, segregated, and unique creatio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unlike in nature and attributes, but the Ancients of Days, the personal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are all uniform and superperfect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18:3.3 (209.5) The Seven Master Spirits on high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but the Ancients of Days dictate the *administration* of these same superuniverses. They superimpose administrative uniformity on creative diversity and insure the harmony of the whole in the face of the underlying creational differences of the seven segmental groupings of the grand universe.

18:3.4 (209.6) The Ancients of Days were all trinitized at the same time. They represent the beginning of the personality record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hence their name — *Ancients of Days*.

존자다. 너희가 **낙원**에 도착해서 사물의 시작에 대해 기록된 서류를 찾을 때, 인격체 부분에서 나타나는 첫 기입사항이, 21명의 이 **태고 항존자**의 삼자일체된 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높은 존재들은 항상 세 명씩 무리지어 통치한다. 그들이 개인으로 작업하는 많은 활동 국면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두 명이든지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영하는 높은 수준의 구체들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거주 세계를 몸소 떠나는 일이 결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세계가 광범한 반사성 체계의 연방우주 초점이기 때문이다.

3인조 **태고 항존자** 각자의 개인 거주지는 본부 구체에 있는 영적{靈的} 극점{極點}에 위치한다. 그런 구체는 70개의 경영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태고 항존자**들이 때때로 거주하는, 70개의 구획 수도{首都}가 있다.

능력, 권세의 범위, 그리고 관할권 한계로 보면, 시_공간 창조계를 직접 통치하는 자 중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가장 강력하고 능능하다. 광대한 온갖 우주 전체에서 오직 그들만이,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영원한 소멸{消滅}에 관련된 최종 행정 판결을 내리는 높은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세 명의 **태고 항존자** 전원이, 연방우주 최고 법정의 최종 판결에 반드시 참여한다.

신격들 및 그 **낙원** 동역자들 이외에, 모든 시_공간 실존 중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다재다능하고, 가장 신성하게 타고난 통치자다. 외견상 그들이 연방우주의 최고 통치자인 것 같지만; 그들은 이 통치 권한을 체험적으로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언젠가는, 체험 주권자인 **지존하신 분**으로 대체될 운명인데, 그들은 틀림없이 **지존하신 분**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지존하신 분은,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지방우주에 대한 주권{主權}을 체험적으로 얻음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봉사로 일곱 연방우주에 대한 주권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존자**가 진화를 아직 완성하지 않은 현재 시대 동안에는, **태고 항존자**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조화되고 완전한 경영상 전면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독창성의 지혜와 개성 있는 주도권이, **태고 항존자**들의 모든 명령과 통치의 특징이다.

4. 완성 항존자

정확하게 210명의 **완성 항존자**가 존재하며,

When you reach Paradise and search the written records of the beginning of things, you will find that the first entry appearing in the personality section is the recital of the trinitization of these twenty-one Ancients of Days.

18:3.5 (209.7) These high beings always govern in groups of three. There are many phases of activity in which they work as individuals, still others in which any two can function, but in the higher spheres of their administration they must act jointly. They never personally leave their residential worlds, but then they do not have to, for these worlds are the superuniverse focal points of the far-flung reflectivity system.

18:3.6 (209.8) The personal abodes of each trio of the Ancients of Days are located at the point of spiritual polarity on their headquarters sphere. Such a sphere is divided into seventy administrative sectors and has seventy divisional capitals in which the Ancients of Days reside from time to time.

18:3.7 (210.1) In power, scope of authority, and extent of jurisdiction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most powerful and mighty of any of the direct rulers of the time-space creations. In all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they alone are invested with the high powers of final executive judgment concerning the eternal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And all three Ancients of Days must participate in the final decrees of the supreme tribunal of a superuniverse.

18:3.8 (210.2) Aside from the Deities and their Paradise associates,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most perfect, most versatile, and the most divinely endowed rulers in all time-space existence. Apparently they are the supreme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but they have not experientially earned this right to rule and are therefore destined sometime to be superseded by the Supreme Being, an experiential sovereign, whose vicegerents they will undoubtedly become.

18:3.9 (210.3) The Supreme Being is achieving the sovereignt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y experiential service just as a Creator Son experientially earns the sovereignty of his local universe. But during the present age of the unfinished evolution of the Supreme, the Ancients of Days provide the co-ordinated and perfect administrative overcontrol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d the wisdom of originality and the initiative of individuality characterize all the decrees and rulings of the Ancients of Days.

4. THE PERFECTIONS OF DAYS

18:4.1 (210.4) There are just two hundred and ten

그들은 각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 정부를 통치한다. 그들은 연방우주 지휘자들을 보좌하는 특별 업무를 위해 삼자일체됐고, **태고 항존자**들의 직속 대리인 및 개인적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

세 명의 **완성 항존자**가 각 대구역 수도에 배정되지만, **태고 항존자**들과는 달리, 세 명 모두가 항상 같이해야 될 필요는 없다. 때때로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자기 영역의 복지와 관련해서 **태고 항존자**와 친히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대구역의 이 삼중 통치자들은, 경영 세부사항에 대한 숙달에서 각별하게 완전하고,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완성 항존자**다. 이 영적 세계 존재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우리는 너희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 문제에 봉착했으며, 만족할만한 번역을 제공하기가 무척 힘든 경우를 매우 자주 겪는다. 우리는 너희에게 무의미할 그런 명칭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기 싫으며; 따라서 적당한 이름, 즉 너희에게 분명한 동시에, 원래의 뜻을 어느 정도 나타내게 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을 종종 발견한다.

완성 항존자들은, 자신의 정부에 배속된, **신성한 조연자**, **지혜 완성자**, 및 **우주 검열관**들로 구성된 적당한_수준의 단체를 거느린다. 그들은 더 많은 숫자의, **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을 거느린다. 그러나 대구역 직무 가운데 일상 업무 대부분은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이 수행한다. 이 두 집단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 또는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의 삼자일체된 자손 가운데서 모집된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존재의 이 두 계층 가운데 어떤 계층은 **낙원 신격**들에 의해 다시 삼자일체되고, 그런 후에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을 보좌하도록 파견된다.

대부분의 **천상의 수호자**와 **지고{至高} 아들 보좌관**이 대구역 및 소구역 봉사에 배정되지만,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스라빔과 중도자들은) 세 부서 전체의 법정에 속한 직원인데, **태고 항존자**, **완성 항존자**, 그리고 **최근 항존자**들의 법정에서 활동한다.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아들**과_융합되거나 **영과**_융합된 본성을 가진,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상승한 필사자들은) 한 연방우주 내 어디서든지 마주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구역에서 근무한다.

일곱 연방우주의 정부 짜임새가 완전히 계시되는 때가 오기 전에는, **태고 항존자**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 정부의 다양한 부서에 속한 모든 경영자는, 완전한 **하보나** 우주의 다양한 세계에서 **영원 항존자**들 밑에서 다양한 기간 훈련생으로서

Perfections of Days, and they preside over the governments of the ten major sectors of each superuniverse. They were trinitized for the special work of assisting the superuniverse directors, and they rule as the immediate and personal vicegerents of the Ancients of Days.

18.4.2 (210.5) Three Perfections of Days are assigned to each major sector capital, but unlike the Ancients of Days,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three be present at all times. From time to time one of this trio may absent himself to confer in person with the Ancients of Days concerning the welfare of his realm.

18.4.3 (210.6) These triune rulers of the major sectors are peculiarly perfect in the mastery of administrative details, hence their name — Perfections of Days. In recording the names of these beings of the spiritual world, we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ng into your tongue, and very often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render a satisfactory translation. We dislike to use arbitrary designations which would be meaningless to you; hence we often find it difficult to choose a suitable name, one which will be clear to you and at the same time be somewhat representative of the original.

18.4.4 (210.7) The Perfections of Days have a moderate-sized corps of Divine Counselors, Perfectors of Wisdom, and Universal Censors attached to their governments. They have still larger numbers of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But much of the routine work of major sector affairs is carried on by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 High Son Assistants. These two groups are drawn from among the trinitized offspring of either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or glorified mortal finaliters. Certain of these two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beings are retrinitized by the Paradise Deities and then are dispatched to assis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8.4.5 (211.1) Most of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 High Son Assistant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major and the minor sectors, but the Trinitized Custodians (Trinity-embraced seraphim and midwayers) are the officers of the courts of all three divisions, functioning in the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Perfections of Days, and the Recents of Days. The Trinitized Ambassadors (Trinity-embraced ascendant mortals of Son- or Spirit-fused nature) may be encountered anywhere in a superuniverse, but the majority are in the service of the minor sectors.

18.4.6 (211.2) Before the times of the full unfolding of the governmental schem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practically all administrators of the various divisions of these governments, excepting the Ancients of Days, served apprenticeships of

근무한다. 나중에 삼자일체된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태고 항존자**, **완성 항존자**, 및 **최근 항존자**들의 근무에 배속되기 전에, **영원 항존자**들 아래서 어떤 기간 훈련 받으면서 지내게 된다. 그들은 모두 숙련되고, 시험을 마치고, 체험을 얻은 경영자다.

소구역 세계들에서 체류를 마친 후에 **스프랜돈** 본부로 나아갈 때, 너희는 **완성 항존자**들을 일찍 보게 될 것인데, 이 고귀한 통치자들이, 시간세계의 상승한 피조물을 위해 고등 훈련을 시키는, 70개 대구역 세계와 가깝게 연합돼 있기 때문이다. **완성 항존자**들은, 대구역 학교들을 졸업하는 상승자에게 집단 서약(誓約)을 직접 시행한다.

대구역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들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가 하는 일은 주로 지적 본성에 속하는데, 이것은 소구역의 일곱 교육 세계에서 행하는 더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특성을 갖는 훈련, 그리고 연방우주 본부의 490개 대학 세계에서 행하는 영적 이행업무와 대조(對照)를 이룬다.

비록 **스프랜돈** 대구역의 기록부에만 기입되지만, **스프랜돈**은 너희가 기원된 지방우주를 포함하며, 너희는 우리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 부서를 모두 거쳐야만 할 것이다. **우버사**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는 30명의 **오르본톤 완성 항존자**를 모두 만날 것이다.

5. 최근 항존자

최근 항존자들은 연방우주의 최상급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존재이며; 세 명씩 무리지어 소구역 직무를 관장한다. 그들이 본성적으로는 **완성 항존자**와 동등하지만, 경영상 권한에서는 하위에 있다. 인격적으로 영화롭고 신성하게 유능한 이 **삼위일체** 인격체는 정확하게 21,000명 있다. 그들은 동시에 창조됐으며, **영원 항존자**들 아래서 **하보나** 훈련을 함께 통과했다.

최근 항존자들은, **완성 항존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동역자와 보좌관 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천상(天上)의 존재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하위 계층을 배정받았다. 소구역을 경영하면서, 그들은 많은 숫자의 상승하는 거주(居住) 필사자, 다양한 우대(優待) 거주자들의 요원, 그리고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다양한 집단을 활용한다.

소구역 정부는, 독점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varying duration under the Eternals of Days on the various worlds of the perfect Havona universe. The later trinitized beings likewise passed through a season of training under the Eternals of Days before they were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 Perfections of Days, and the Recents of Days. They are all seasoned, tried, and experienced administrators.

18:4.7 (211.3) You will early see the Perfections of Days when you advance to the headquarters of Splanon after your sojourn on the worlds of your minor sector, for these exalted ruler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eventy major sector worlds of higher training for the ascendant creatures of time. The Perfections of Days, in person, administer the group pledges to the ascending graduates of the major sector schools.

18:4.8 (211.4) The work of the pilgrims of time on the worlds surrounding a major sector headquarters is chiefly of an intellectual nature in contrast with the more physical and material character of the training on the seven educational spheres of a minor sector and with the spiritual undertakings on the four hundred ninety university worlds of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18:4.9 (211.5) Although you are entered only upon the registry of the major sector of Splanon, which embraces the local universe of your origin, you will have to pass through every one of the ten major divisions of our superuniverse. You will see all thirty of the Orvonton Perfections of Days before you reach Uversa.

5. THE RECENTS OF DAYS

18:5.1 (211.6) The Recents of Days are the youngest of the supreme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s; in groups of three they preside over the affairs of the minor sectors. In nature they are co-ordinat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but in administrative authority they are subordinate. There are just twenty-one thousand of these personally glorious and divinely efficient Trinity personalities. They were created simultaneously, and together they passed through their Havona training under the Eternals of Days.

18:5.2 (211.7) The Recents of Days have a corps of associates and assistants similar to that of the Perfections of Days. In addition they have assigned to them enormous numbers of the various subordinate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minor sectors they utilize large numbers of the resident ascending mortals, the personnel of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and the various groups originating in the Infinite Spirit.

18:5.3 (211.8) The governments of the minor sectors are very largely, though not exclusively, concerned

도 대체로, 연방우주의 큰 물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소구역 구체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본부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 세계들에서, 셋째 계층의 **최상급 동력 중심**들, 그리고 모두 일곱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하는 활동을 시험(試驗)하는 것과 관련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소구역 체제가 물리적 문제와 무척 광범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최근 항존자** 세 명이 수도(首都) 구체에 함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명은, 대구역을 감독하는 **완성 항존자**와 논의하기 위해 떠나 있거나, 높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들의 **낙원** 비밀회의에서 **태고 항존자**를 대신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들은 **낙원**의 최고 협의회에서 **태고 항존자**를 대변하는 일에 **완성 항존자**와 교대한다. 그동안, 다른 **최근 항존자**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방우주 본부 세계를 검사하는 여행으로 떠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통치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소구역 본부에 근무하면서 항상 남아 있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의 소구역인 **엔사**를 담당하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를 알게 될 것인데, 대구역의 훈련 세계들을 향해 안쪽으로 길을 갈 때 그들의 영향권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우버사**로 상승할 때, 너희는 오직 한 집단의 소구역 훈련 구체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6. 합동 항존자

“**항존자**” 계층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연방우주 정부 수준 아래에서 경영자 자격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화하는 지방우주에서 오직 조언자 및 자문가로서만 행동한다. **합동 항존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공인을 받아서 지방우주의 이중 통치자에게 연락하는 인격체 집단이다.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각 지방우주는 이 **낙원** 조언자 가운데 하나를 배정받는데, 그는 **삼위일체**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방 창조계에 대해 **만유의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행동한다.

모두가 위임받지는 못했더라도, 70만 명의 이 존재들이 실존하고 있다. **합동 항존자**들의 예비 단체는 **우주 조절 최상급 위원회**로서 **낙원**에서 활동한다.

이 **삼위일체** 관찰자들이, 우주 정부의 모든 부서의 경영 활동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조화시키는데, 지방우주의 활동에서 구역 정부들을 거쳐서 연방우주의 활동에 이르기까지이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합동 항존자**다. 그들은 감독관들에게 삼중적으로 보고한다: 자기 소구역의 **최근 항존자**에게, 물리적 및 약간_지적 본성을 가진 관련 자

with the great physical problems of the superuniverses. The minor sector spheres are the headquart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n these worlds ascending mortals carry on studies and experiments having to do with an exa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third order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of all seven ord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18:5.4 (212.1) Since the regime of a minor sector is so extensively concerned with physical problems, its three Recents of Days are seldom together on the capital sphere. Most of the time one is away in conferenc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of the supervising major sector or absent while representing the Ancients of Days at the Paradise conclaves of the high Trinity-origin beings. They alternat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in representing the Ancients of Days at the supreme councils on Paradise. Meanwhile, another Recent of Days may be away on a tour of inspec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belonging to his jurisdiction. But at least one of these rulers always remains on duty at the headquarters of a minor sector.

18:5.5 (212.2) You will all sometime know the three Recents of Days in charge of Ensa, your minor sector, since you must pass through their hands on your way inward to the training worlds of the major sectors. In ascending to Uversa, you will pass through only one group of minor sector training spheres.

6. THE UNIONS OF DAYS

18:6.1 (212.3) The Trinity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Days” do not function in an administrative capacity below the level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In the evolving local universes they act only as counselors and advisers. The Unions of Days are a group of liaison personalities accredited by the Paradise Trinity to the dual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Each organized and inhabited local universe has assigned to it one of these Paradise counselors, who act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Trinity, and in some respects,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local creation.

18:6.2 (212.4) There are seven hundred thousand of these beings in existence, though they have not all been commissioned. The reserve corps of the Unions of Days functions on Paradise as the Supreme Council of Universe Adjustments.

18:6.3 (212.5) In a special manner these Trinity observers co-ordinate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all branches of the universal government, from those of the local universes up through the sector governments to those of the superuniverse, hence their name — *Unions of Days*. They make a threefold report to their superiors: They report

료를 보고하고, 자기 대구역의 **완성 항존자**에게, 지적이고 유사{類似}_영적인 사건을 보고하며;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태고 항존자**에게, 영적 문제와 약간낙원같은 문제를 보고한다.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호소통을 위해 **낙원** 회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간의 접촉을, 그리고 **낙원**의 최고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다른 모든 인격체와 접촉하는 일을 항상 유지한다.

합동 항존자는, 할당받은 지방우주의 정부와 유기적{有機的}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관찰자로서 그의 임무 이외에, 그는 오직 지방 권세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행동한다. 그는 지방 창조계의 모든 1차 협의회와 모든 중요 비밀회의의 직권상{職權上} 회원이지만, 경영 문제에 대한 기술적 고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거기서 영화롭게 된 존재들은 **합동 항존자**와 자유롭게 연합하는데, 그때 그는 진화로 완전해진 그런 영역에서 확대된 수용력을 갖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1차적으로 **삼위일체** 대사와 **낙원** 조언자다.

이중{二重} **신격** 기원을 갖는 신성한 **한 아들**이 지방우주를 직접 통치하지만, 그는 한 **낙원** 형제, 즉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를 계속 옆에 둔다.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에, 대리 통치자들은 주로 **합동 항존자**의 조언에 따라서 주요 결정 대부분을 안내 받는다.

pertinent data of a physical and semi-intellectual nature to the Recents of Days of their minor sector; they report intellectual and quasi-spiritual happenings to the Perfections of Days of their major sector; they report spiritual and semiparadisiacal matters to the Ancients of Days at the capital of their superuniverse.

18:6.4 (212.6) Since they are Trinity-origin beings, all of the Paradise circuits are available to them for intercommunication, and thus are they always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with all other required personalities up to the supreme councils of Paradise.

18:6.5 (212.7) A Union of Days is not organically connec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assignment. Aside from his duties as an observer, he acts only at the request of the local authorities. He is an ex officio member of all primary councils and all important conclaves of the local creation, but h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technical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problems.

18:6.6 (213.1) When a local universe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its glorified beings associate freely with the Union of Days, who then functions in an enlarged capacity in such a realm of evolutionary perfection. But he is still primarily a Trinity ambassador and Paradise counselor.

18:6.7 (213.2) A local universe is directly ruled by a divine Son of dual Deity origin, but he has constantly by his side a Paradise brother, a Trinity-origin personality. In the event of the temporary absence of a Creator Son from the headquarters of his local universe, the acting rulers are largely guided in their major decisions by the counsel of their Union of Days.

7. 충실 항존자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이 고위{高位} 인격체들은, 각 지방우주에 있는 100개 성좌의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자문가다. 7천만 명의 **충실 항존자**가 있고, **합동 항존자**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근무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낙원** 예비 단체는, **상호우주 윤리**와 **자체 정부**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충실 항존자**들은, 자신의 예비 단체의 최고 협의회가 통치하는 바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한다.

합동 항존자와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의 모든 관계는, **충실 항존자**와 지방 창조에 속하는 성좌를 통치하는 **보론다덱 아들**의 관계와 같다. 그들은 배정된 성좌의 복지에 대해 최고로 헌신돼 있고 신성하게 충실하며, 따라서 그 이름이 --**충실 항존자**다. 그들은 오직 조언자로서만 행동하며;성좌 당국{當局}의 초대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좌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양식 훈련 구체들에서,

7. THE FAITHFULS OF DAYS

18:7.1 (213.3) These high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re the Paradise advisers to the ruler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in each local universe. There are seventy million Faithfuls of Days, and like the Unions of Days, not all are in service. Their Paradise reserve corps is the Advisory Commission of Interuniverse Ethics and Self-government. Faithfuls of Days rotate in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ir reserve corps.

18:7.2 (213.4) All that a Union of Days is to a Creator Son of a local universe, the Faithfuls of Days are to the Vorondadek Sons who rule the constellations of that local creation. They are supremely devoted and divinely faithful to the welfare of their constellations of assignment, hence the name — Faithfuls of Days. They act only as counselors; never do they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activities except upon the invitation

그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에 대한 교육 사역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이행업무는 **보론 다덱 아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우주 성좌에서 활동하는 모든 **충실 항존자**는 **합동 항존자**의 관할권 아래에 있고, 그에게 직접 보고한다. 그들은 광범한 상호소통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지방우주 경계선들 내에서 상호연합하는 것으로 대개 스스로 제한돼 있다. **네바돈**에서 근무하는 어떤 **충실 항존자**든지, 이 지방우주에서 임무 수행중인, 같은 계층에 속하는 다른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충실 항존자들은, 우주 본부에 있는 **합동 항존자**처럼, 그런 영역의 경영 지휘자의 거주지로부터 분리된 성좌{星座} 수도에 자신의 개인 거주지를 유지한다. 그들의 거주지는 성좌의 **보론다덱** 통치자의 거처와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수수하다.

충실 항존자들은, 만물의 중심 가까이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구체들로부터, 지방우주의 1차 부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경영_자문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다.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체제는 성좌들과 함께 끝나며; 그런 **낙원** 자문가 중에서, 그 구성요소인 체계 또는 인간거주 세계에, 영원히 자리 잡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거주 세계의 이 경영 단위는, 전적으로 지방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of the constellation authorities.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in the educational ministry to the pilgrims of ascension on the architectural training spheres surrounding a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l such undertaking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orondadek Sons.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in the educational ministry to the pilgrims of ascension on the architectural training spheres surrounding a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l such undertaking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orondadek Sons.

18.7.3 (213.5) All Faithfuls of Days functioning in the constellations of a local universe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and report directly to, the Union of Days. They do not have a far-flung system of intercommunication, being ordinarily self-limited to an interassociation within the limits of a local universe. Any Faithful of Days on duty in Nebadon can and does communicate with all others of his order on duty in this local universe.

18.7.4 (213.6) Like the Union of Days on a universe headquarters, the Faithfuls of Days maintain their personal residence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separate from those of the administrative directors of such realms. Their abodes are indeed modest in comparison with the homes of the Vorondadek rulers of the constellations.

18.7.5 (213.7) The Faithfuls of Days are the last link in the long administrative-advisory chain which reaches from the sacred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near the center of all things to the primary divisions of the local universes. The Trinity-origin regime stops with the constellations; no such Paradise advisers are permanently situated on their component systems or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latter administrative units are who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being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18.7.6 (213.8)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19편.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동격 존재

⇨ 018

유랜시아 책

020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9편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동격 존재

섹션

소개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2. 지혜 완성자
3. 신성한 조연자
4. 우주 검열관
5. 영감된 삼위일체 영
6. 하보나 원주민
7. 낙원 시민

PAPER 19

THE CO-ORDINATE TRINITY-
ORIGIN BEING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inity Teacher Sons
2. The Perfectors of Wisdom
3. The Divine Counselors
4. The Universal Censors
5. Inspired Trinity Spirits
6. Havona Natives
7. Paradise Citizens

소개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동격 존재로 명명되는 이 낙원 집단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포함하며, 또한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데, 세 집단의 높은 연방우주 경영자들, 그리고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라는, 어느 정도 비인격적인 범주를 포함한다. 심지어 하보나 원주민도, 낙원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집단과 함께, 이 삼위일체 인격체들 분류에 포함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고려될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는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교사{教師} 아들.
2. 지혜 완성자.
3. 신성한 조연자.
4. 우주 검열관.
5. 영감된 삼위일체 영.
6. 하보나 원주민.
7. 낙원 시민.

INTRODUCTION

19:0.1 (214.1) THIS Paradise group, designated the Co-ordinate Trinity-origin Beings, embraces the Trinity Teacher Sons, also classed among the Paradise Sons of God, three groups of high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and the somewhat impersonal category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Even the Havona natives may properly be included in this classification of Trinity personalities along with numerous groups of beings resident on Paradise. Those Trinity-origin beings to be considered in this discussion are:

19:0.2 (214.2) 1. Trinity Teacher Sons.

19:0.3 (214.3) 2. Perfectors of Wisdom.

19:0.4 (214.4) 3. Divine Counselors.

19:0.5 (214.5) 4. Universal Censors.

19:0.6 (214.6) 5. Inspired Trinity Spirits.

19:0.7 (214.7) 6. Havona Natives.

19:0.8 (214.8) 7. Paradise Citizens.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그리고 아마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도 제외하고, 이 집단들의 구성원 숫자는 명확하며; 그들의 창조는 완결됐고, 과거 사건이다.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너희에게 계시된 천상{天上}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모든 높은 계층 중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만이 이중{二重} 수용력을 갖고 행동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본성에서 기원됐으므로, 기능 면에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봉사에 거의 전적으로 헌신돼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인격체와, 이중으로 기원된 인격체 사이의 우주 간격을 연결하는 연락원이다.

삼위일체 상비 아들이 완성된 숫자에 해당되는 반면, **교사 아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교사 아들**의 최종 숫자가 얼마일지 모른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버사**에 보내온 최근 정기 보고서에서, 근무 중인 이 **아들**의 숫자를 **낙원** 기록이 21,001,624,821명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존재들은, **낙원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에게 계시된 유일한 집단이다. 그들의 범위는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에 이르고, 거대한 단체가 각 지방우주에 배정돼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하듯이, 개별 행성에서도 근무한다. 광우주의 짜임새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낙원**에서 예비군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광우주의 모든 구획, 즉 공간의 외판 세계들에서,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들에서, 그리고 **하보나** 세계들에서, 비상{非常}의 의무 및 색다른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그들은 **낙원**에서도 활동하지만, 그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考察}은,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교사 아들**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협조하는 최상 인격체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런 광범한 온갖 우주에는, 제한된 관점{觀點}이라는 오류에, 즉 실체와 신성에 대한 분할된 생각에 내재된 악{惡}에 굴복하는, 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 정신은 단순하고 유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무한한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기원{起源}으로부터 신성한 운명까지 나아감으로써, 본 계시들 속에 묘사된 시공우주 철학에 접근하기를 대개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 지혜**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 과정은 일종의 **유전적 지식**에 도달하는 가장 쉬운 길이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의 기원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며; 사람의 신성한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

19:0.9 (214.9) Excepting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possibly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these groups are of definite numbers; their creation is a finished and past event.

1. THE TRINITY TEACHER SONS

19:1.1 (214.10) Of all the high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revealed to you, the Trinity Teacher Sons alone act in a dual capacity. By origin of Trinity nature, in function they are almost wholly devoted to the services of divine sonship. They are the liaison beings who bridge the universe gulf between Trinity- and dual-origin personalities.

19:1.2 (214.11) Whil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are of completed numbers, the Teacher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What the final number of Teacher Sons will be I do not know. I can, however, state that, at the last periodic report to Uversa, the Paradise records indicated 21,001,624,821 of these Sons in service.

19:1.3 (214.12) These beings are the only group of the Sons of God revealed to you whose origin is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range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d an enormous corps is assigned to each local universe. They also serve the individual planets as do the other Paradise Sons of God. Since the scheme of the grand universe is not fully developed, large numbers of Teacher Sons are held in the reserves on Paradise, and they volunteer for emergency duty and unusual service in all divisions of the grand universe, on the lone worlds of space, in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and on the worlds of Havona. They also function on Paradise, but it will be more helpful to postpone their detailed consideration until we come to the discussion of the Paradise Sons of God.

19:1.4 (215.1) In this connection, however, it may be noted that Teacher Sons are the supreme co-ordinating personalities of Trinity origin. In such a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there is always great danger of succumbing to the error of the circumscribed viewpoint, to the evil inherent in a segmentalized conception of reality and divinity.

19:1.5 (215.2) For example: The human mind would ordinarily crave to approach the cosmic philosophy portrayed in these revelations by proceeding from the simple and the finite to the complex and the infinite, from human origins to divine destinies. But that path does not lead to *spiritual wisdom*. Such a procedure is the easiest path to a certain form of *genetic knowledge*, but at best it can only reveal man's origin; it reveals little or nothing about his divine destiny.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현 시대 상황과 사람의 현행 문제들을 오로지 역사적으로 접근함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인간적이거나 신성한, 지상{地上}의 또는 시공우주의 어떤 실체 문제든지, 그것에 대한 참된 전망은 우주 실체에 대한 세 국면, 즉: 기원, 역사, 및 운명에 대해 충분히 편견 없이 연구하고 서로 관련시킴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 세 체험적 실체에 대한 타당한 이해가, 현 상황을 현명하게 측정할 기초를 제공한다.

생물학적으로든지 또는 신학적으로든지, 인간 정신이 낮은 데로부터 출발해서 더 높은 데로 접근하는 철학 기법을 따라가기로 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1. 개인적 달성이든지 또는 시공우주 운명이든지, 최종적이고 완성된 진화 목표를 깨닫는 데 철저히 실패할 수 있다.

2. 시공우주의 진화적 (체험적) 실체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하여 사실에 대한 왜곡, 진리에 대한 오용{誤用},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함으로써, 최고로 큰 철학적 실책을 범할 수 있다.

3. 원인을 연구하려면 역사를 숙독{熟讀}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아는 지식, 어떤 존재의 현재 상태와 진정한 성품에 대한 지성적 이해를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는다.

4. 역사 자체만으로는 미래의 발전을--곧 운명을--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 유한한 기원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직 신성한 원인만이 최종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영원한 목적을 알 수 없다. 현재는 오직 관련된 과거와 미래에 비취봄으로써만 참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공우주 실존과 모든 인격 실체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낙원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시공간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사람과 그의 행성 문제에 접근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지혜 완성자

지혜 완성자는 연방우주에서 신{神}의 지혜를 의인화{擬人化}시키도록 고안된, **낙원 삼위일체**의 특화된 피조물이다. 실존하는 이 존재의 숫자는 정확하게 70억 명이고,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 10억 명씩 배정돼 있다.

동격 존재들인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과 공통으로, **지혜 완성자**들은 **낙원**과 **하보나**의 지혜를 거쳤으며, **디비닝톤**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19:1.6 (215.3) Even in the study of man's biologic evolution on Urantia, there are grave objections to the exclusive historic approach to his present-day status and his current problems. The true perspective of any reality problem — human or divine, terrestrial or cosmic — can be had only by the full and unprejudiced study and correlation of three phases of universe reality: origin, history, and destiny.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se three experiential realities affords the basis for a wise estimate of the current status.

19:1.7 (215.4) When the human mind undertakes to follow the philosophic technique of starting from the lower to approach the higher, whether in biology or theology, it is always in danger of committing four errors of reasoning:

19:1.8 (215.5) 1. It may utterly fail to perceive the final and completed evolutionary goal of either personal attainment or cosmic destiny.

19:1.9 (215.6) 2. It may commit the supreme philosophical blunder by oversimplifying cosmic evolutionary (experiential) reality, thus leading to the distortion of facts, to the perversion of truth, and to the misconception of destinies.

19:1.10 (215.7) 3. The study of causation is the perusal of history. But the knowledge of *how* a being becomes does not necessarily provide an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us and true character of such a being.

19:1.11 (215.8) 4. History alone fails adequately to reveal future development — destiny. Finite origins are helpful, but only divine causes reveal final effects. Eternal ends are not shown in time beginnings. The present can be truly interpreted only in the light of the correlated past and future.

19:1.12 (215.9) Therefore, because of these and for still other reasons, do we employ the technique of approaching man and his planetary problems by embarkation on the time-space journey from the infinite, eternal, and divine Paradise Source and Center of all personality reality and all cosmic existence.

2. THE PERFECTORS OF WISDOM

19:2.1 (215.10)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a specialized cre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designed to personify the wisdom of divinity in the superuniverses. There are exactly seven billion of these beings in existence, and one billion are assigned to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9:2.2 (215.11) In common with their co-ordinates, the Divine Counselors and the Universal Censors, the Perfectors of Wisdom passed through the wisdom of Paradise, of Havona, and except for

낙원 구체들의 지혜를 거쳤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 **지혜 완성자**들은 **태고 항존자**들을 위한 근무에 영구히 배정됐다. 그들은 **낙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낙원 하보나** 회로들 세계에서도 근무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에 전념한다.

지혜 완성자들이 활동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그때 거기서 신성한 지혜가 작용한다. 전능하고 위엄 있는 이 인격체들의 활동에는, 지식과 지혜가 실제로 나타나고 완전하게 형태화된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지혜를 반영하지 않으며; 그들이 바로 그 지혜이다. 그들은 우주 지식을 응용하는 모든 선생을 위한 지혜의 근원이며; 모든 우주에서 학문과 통찰력을 가르치는 기관들에게, 분별의 샘이자 식별의 우물이다.

지혜는 이중 기원을 갖는데, 완전한 존재들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신성 통찰력의 완성으로부터, 그리고 진화 피조물이 획득하는 개인 체험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혜 완성자**들은, **신격** 통찰력이라는, 완전한 **낙원**의 신성한 지혜이다.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경영 동역자, 즉 **강력한 사자,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그리고 **권세 높은 이**들은, 함께 행동할 때, 체험하는 우주 지혜이다. 신성한 존재는, 신성한 지식이 완비됨을 이룰 수 있다. 진화 필사자는 상승자로서의 지식이 완비됨을 언젠가 달성할 수 있지만, 이 존재 가운데 누구도 모든 가능한 지혜의 잠재력을 홀로 다 발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방우주 운영에서 최고 상태의 경영상 지혜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진화로 진보하는 체험적 고난을 통해서 연방우주 권세의 높은 책임 위치로 올라간 상승자 인격체들과, 신성한 통찰력을 지닌 이 지혜 완성자들이 항상 연합한다.

지혜 완성자들은, 자신의 경영상 총명함을 완성하기 위해, 이 체험적 지혜 보완자를 만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언젠가 영 실존의 일곱째 단계로 모집된 후에, 그들은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지혜 수준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돼 왔다. 이 추론이 맞다면, 진화로 상승한 그런 완전해진 존재들은, 모든 창조물 안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우주 경영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그런 것이 완결성취자들의 고귀한 운명이라고 믿는다.

지혜 완성자의 다재다능함이, 상승한 피조물의 모든 천상의 봉사에 그들이 실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혜 완성자**들, 그리고 내 계층의 인격체인 **신성한 조인자**들은, **우주 검열관**들과 함께, 그들의 초기 시기든지 또는 빛과 생명에 정착

Divinington, of the Father's Paradise spheres. After these experiences the Perfectors of Wisdom were permanent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serve neither on Paradise nor on the worlds of the Paradise-Havona circuits; they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9:2.3 (216.1) Wherever and whenever a Perfector of Wisdom functions, there and then divine wisdom functions. There is actuality of presence and perfection of manifestation in the knowledge and wisdom represented in the doings of these mighty and majestic personalities. They do not *reflect* the wisdom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that wisdom. They are the sources of wisdom for all teachers in the application of universe knowledge; they are the fountains of discretion and the wellsprings of discrimination to the institutions of learning and discernment in all universes.

19:2.4 (216.2) Wisdom is twofold in origin, being derived from the perfection of divine insight inherent in perfect beings and from the personal experience acquired by evolutionary creatures.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the divine wisdom of the Paradise perfection of Deity insight. Their administrative associates on Uversa, the Mighty Messengers,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nd Those High in Authority, when acting together, are the universe wisdom of experience. A divine being can have perfection of divine knowledge. An evolutionary mortal can sometime attain perfection of ascendant knowledge, but neither of these beings alone exhausts the potentials of all possible wisdom. Accordingly, whenever in the conduct of the superuniverse it is desired to achieve the maximum of administrative wisdom, these perfectors of the wisdom of divine insight are always associated with those ascendant personalities who have come up to the high responsibilities of superuniverse authority through the experiential tribulation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19:2.5 (216.3) The Perfectors of Wisdom will always require this complement of experiential wisdom for the completion of their administrative sagacity. But it has been postulated that a high and hitherto unattained level of wisdom may possibly be achieved by the Paradise finalizers *after* they are sometime inducted into the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If this inference is correct, then would such perfected beings of evolutionary ascent undoubtedly become the most effective universe administrators ever to be known in all creation. I believe that such is the high destiny of finalizers.

19:2.6 (216.4) The versatility of the Perfectors of Wisdom enables them to participate in practically all of the celestial services of the ascendant creature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my order of personality, the Divine Counselors,

할 때든지, 개별 행성과 체계에 진리를 계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가장 높은 존재 계층을 구성한다. 초기_생명의 행성으로부터, 위로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특히 후자{後者}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베푸는 봉사와 때때로 접촉한다.

3. 신성한 조연자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이 존재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영역에게 주는 **신격**의 조연이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연을 *반영하지* 않으며;그들이 그 조연 *이다*. 210억 명의 **조연자**가 근무하는 있으며, 각 연방우주마다 30억 명씩 배정돼 있다.

신성한 조연자들은 **우주 검열관**과 **지혜 완성자**들의 동역자요 동등한 자인데, 이 **지혜 완성자** 인격체 각각에게 한 명 내지 일곱 명의 **조연자**가 연합돼 있다. 세 계층 모두가, **태고 항존자**들의 정부에, 즉 대구역 및 소구역들을 포함해서, 지방우주 및 성좌들에, 그리고 지역 체계 주권자{主權者}들의 협의회에 참여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체로서 행동하지만, 또한 상황이 요구할 때마다 3인조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행정 수용력 내에서 행동할 때, 한 명의 **지혜 완성자**, 한 명의 **우주 검열관**, 그리고 한 명에서 일곱 명에 이르는 **신성한 조연자**가 연합한다.

한 명의 **지혜 완성자**, 일곱 명의 **신성한 조연자**, 그리고 한 명의 **우주 검열관**이, **삼위일체** 신성 법정, 즉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가장 높은 이동{移動} 자문 기관을 구성한다. 이런 아홉 명의 집단은, 사실을 발견하거나 진리를 계시하는 법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재판하고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은 마치 **태고 항존자**가 그 문제를 판결한 것과 동일한데, 연방우주들의 역사 전체에서 그런 판결을 **태고 항존자**들이 바꾼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태고 항존자 세 명이 작용할 때에는, **낙원 삼위일체**가 활약한다. 아홉 명의 법정이 일치된 심의를 거친 후에 어떤 결정에 도달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보면, **태고 항존자**들이 말씀을 완료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낙원 통치자**들은 경영 문제와 정부의 규칙을 다룰 때, 개별 세계, 체계, 및 우주와 직접 접촉한다.

신성한 조연자들은, **낙원 삼위일체**가 주는, 신{神}의 완전한 조연이다. 우리는 완성된 조연을

together with the Universal Censors, constitute the highest orders of beings who may and do engage in the work of revealing truth to the individual planets and systems, whether in their earlier epochs or when settled in light and life. From time to time we all make contact with the service of the ascending mortals, from an initial-life planet on up through a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particularly the latter.

3. THE DIVINE COUNSELORS

19:3.1 (216.5) These Trinity-origin beings are the counsel of Deity to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not *reflective* of the divine counsel of the Trinity; they *are* that counsel. There are twenty-one billion Counselors in service, and three billion are assigned to each superuniverse.

19:3.2 (217.1) Divine Counselors are the associates and equals of the Universal Censors and the Perfectors of Wisdom, from one to seven Counselors being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latter personalities. All three orders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of the Ancients of Days, including major and minor sectors, in the local universes and constellations, and in the councils of the local system sovereigns.

19:3.3 (217.2) We act as individuals, as I do in inditing this statement, but we also function as a trio whenever the occasion requires. When we act in an executive capacity, always there are associated together a Perfector of Wisdom, a Universal Censor, and from one to seven Divine Counselors.

19:3.4 (217.3) One Perfector of Wisdom, seven Divine Counselors, and one Universal Censor constitute a tribunal of Trinity divinity, the highest mobile advisory bod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Such a group of nine is known either as a fact-finding or as a truth-revealing tribunal, and when it sits in judgment upon a problem and renders a decision, it is just as if an Ancient of Days had adjudicated the matter, for in all the annals of the superuniverses such a verdict has never been reversed by the Ancients of Days.

19:3.5 (217.4) When the three Ancients of Days function, the Paradise Trinity functions. When the tribunal of nine arrives at a decision following its united deliberation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Ancients of Days have spoken. And it is in this manner that the Paradise Rulers make personal contact, in administrative matters and governmental regulation, with the individual worlds, systems, and universes.

19:3.6 (217.5) Divine Counselors are the perfection of the divine counsel of the Paradise Trinity. We represent, in fact *are*, the counsel of perfection.

대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완성된 조연이다. 우리 동역자들, 즉 진화로 상승하여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고 완전하게 된 존재들의 체험적 조연으로 우리가 보충 받을 때, 우리의 병합된 결론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된다. **우주 검열관**이 우리의 일치된 조연을 결합하고, 판결하고, 확인하고, 공표하면, 그 결과는 보편적 전체성의 문턱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평결은, 고려되는 문제와 포함된 상황의 시공간 한계 내에서, **신격**의 절대 입장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삼자일체된 진화 3인조와--곧 한 명의 **강력한 사자**, **권세가 높은 한 분**,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한 분**과-- 접촉을 이루는 일곱 명의 **신성한 조연자**는, 거의 낙원같은 수준의 영적 의미와 실체 가치에 대한 신성한 입장과, 인간 관점의 합일(合一)에 가장 가까운, 연방우주 접근법에 상당한다. 오직 자신을 증여하는 **낙원 아들**들만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일치된 시공우주 의견에 긴밀하게 근접하며, 그들은 인격체 체험의 각 국면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4. 우주 검열관

정확하게 80억 명의 **우주 검열관**이 실존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신격**의 판결서(判決書)이다. 그들은 단순히 완성된 결정을 반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낙원 삼위일체**의 판결이다. 심지어 **태고 항존자**도, **우주 검열관**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중앙우주의 10억 세계 각각에 한 명의 **검열관**이 위임되는데,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의 행정 경영에 배속돼 있다. **지혜 완성자**들뿐 아니라 **신성한 조연자**들도 **하보나** 행정부에 그렇게 영원토록 배속되지는 않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우주 검열관**이 왜 중앙우주에 머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현재 활동은, 그들이 왜 **하보나**에 배치돼 있는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보나** 인구가 부분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 우주 시대의 요구를 예상하면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 10억 명의 **검열관**이 배정돼 있다. 그들은 개별 수용력 내에서, 그리고 **지혜 완성자** 및 **신성한 조연자**들과 연합해서, 일곱 연방우주의 모든 구획 전역에서 활동한다. **검열관**들은 그렇게 광우주의 모든 수준, 즉 **하보나**의 완전한 세계들로부터 **체계 주권자**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행동하며, 진화 세계에 대한 모든 섭리시대 판결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When we are supplemented by the experiential counsel of our associates, the perfected and Trinity-embraced beings of evolutionary ascent, our combined conclusions are not only complete but replete. When our united counsel has been associated, adjudicated, confirmed, and promulgated by a Universal Censor, it is very probable that it approaches the threshold of universal totality. Such verdicts represent the nearest possible approach to the absolute attitude of Deity within the time-space limits of the situation involved and the problem concerned.

19:3.7 (217.6) Seven Divine Counselors in liaison with a trinitized evolutionary trio — a Mighty Messenger, One High in Authority,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 represent the nearest superuniverse approach to the union of the human viewpoint and the divine attitude on near-paradisiacal levels of spiritual meanings and reality values. Such close approximation of the united cosmic attitudes of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is only surpassed in the Paradise bestowal Sons, who are, in every phase of personality experience, God and man.

4. THE UNIVERSAL CENSORS

19:4.1 (217.7) There are exactly eight billion Universal Censors in existence. These unique beings are the judgment of Deity. They are not merely reflective of the decisions of perfection; they are the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Even the Ancients of Days do not sit in judgment except in association with the Universal Censors.

19:4.2 (217.8) One Censor is commissioned on each of the billion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being attached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of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Neither Perfectioners of Wisdom nor Divine Counselors are thus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avona administrations, nor do we altogether understand why Universal Censors are stationed in the central universe. Their present activities hardly account for their assignment in Havona, and we therefore suspect that they are there in anticipation of the needs of some future universe age in which the Havona population may partially change.

19:4.3 (218.1) One billion Censors are assigned to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oth in an individual capacity and in association with Perfectioners of Wisdom and Divine Counselors, they operate throughout all divisio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us the Censors act on all levels of the grand universe, from the perfect worlds of Havona to the councils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y are an organic part of all dispensational adjudicati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우주 검열관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신격**의 심판이 그때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검열관**이 항상 **지혜 완성자** 및 **신성한 조언자**들과 접촉하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낙원 삼위일체**의 일치된 지혜와 조언과 판결을 포함한다. 이런 사법적 삼인조{三人組} 안에서 **지혜 완성자**는 “나는 있었다”가 되고, **신성한 조언자**는 “나는 있을 것이다”가 되지만, **우주 검열관**은 항상 “나는 있다”이다.

검열관들은 총합{總合}하는 우주 인격체다. 1,000명의--또는 100만 명의-- 증인이 증언했을 때, 지혜의 소리가 말을 완료하고 신성{神性}의 조언이 기록을 완료했을 때, 상승자의 완성된 증언이 추가됐을 때, **검열관**이 활약하고, 발산된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하고 신성한 총합이 즉시 계시되며; 그런 발표는 신성한 결론, 즉 최종적이고 완전한 어떤 결정의 총합 및 내용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검열관**이 말을 완료하면, 아무도 발언하지 않게 되는데, 그 **검열관**이 전에 지나간 모든 것의 참되고 실수 없는 전체를 이미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때, 어떤 항의도 없다.

나는 **지혜 완성자**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주 검열관**의 판결하는 정신 활동을 충분히 납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게는, **검열관**이 우주 직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사실과 진리 그리고 조사 결과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미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 검열관**은, 완전한 **창조주** 통찰력과 완전하게 된 피조물 체험의 조합을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낙원** 완전성과 우주 체험의 이 연합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분명히 생겨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주 검열관**들의 정신 작용에 관해 마주치는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든지, 한 **검열관**의 기능 발휘에 관해 우리가 알거나 짐작하는 모든 것을 참작한 후에도, 우리는 결정을 내다보거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을 여전히 발견한다. 우리는 **창조주**의 입장과 피조물의 체험을 관련시킴으로써 가능한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결론이 **검열관**의 발표를 항상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검열관**은 어떤 방법으로 **신격 절대자**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기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많은 결정과 통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및 **우주 검열관**은, 일곱 계층의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와 함께, 때때로 **삼위일체 상비 아들**로 명명되어 온 10개의 집단을 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삼위일체**의 경영자, 통치자, 행정관, 자문가, 조언자, 및

19:4.4 (218.2) Whenever and wherever a Universal Censor is present, then and there is the judgment of Deity. And since the Censors always render their verdicts in liaison with Perfectioners of Wisdom and Divine Counselors, such decisions embrace the united wisdom, counsel, and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is juridical trio the Perfector of Wisdom would be the “I was,” the Divine Counselor the “I will be,” but the Universal Censor is always “I am.”

19:4.5 (218.3) The Censors are universe totaling personalities. When a thousand witnesses have given testimony — or a million — when the voice of wisdom has spoken and the counsel of divinity has recorded, when the testimony of ascendant perfection has been added, then the Censor functions, and there is immediately revealed an unerring and divine totaling of all that has transpired; and such a disclosure represents the divine conclusion, the sum and substance of a final and perfect decision. Therefore, when a Censor has spoken, no one else may speak, for the Censor has depicted the true and unmistakable total of all that has gone before. When he speaks, there is no appeal.

19:4.6 (218.4) Most fully do I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mind of a Perfector of Wisdom, but I certainly do not fully comprehend the working of the adjudicating mind of a Universal Censor. It appears to me that the Censors formulate new meanings and originate new values from the association of the facts, truths, and findings presented to them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f universe affairs. It seems probable that the Universal Censors are able to bring forth original interpretations of the combination of perfect Creator insight and the perfected creature experience. This association of Paradise perfection and universe experience undoubtedly eventuates a new value in ultimates.

19:4.7 (218.5) But this is not the end of our difficulties regarding the working of the minds of the Universal Censors. Having made due allowances for all that we know or conjecture about the functioning of a Censor in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we find that we are still unable to predict decisions or to forecast verdicts. We very accurately determine the probable result of the association of Creator attitude and creature experience, but such conclusions are not always accurate forecasts of Censor disclosures. It seems likely that the Censors are in some manner in liaison with the Deity Absolute; we are otherwise unable to explain many of their decisions and rulings.

19:4.8 (218.6) Perfectione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together with the seven orders of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constitute those ten groups which have been sometimes designated *Stationary Sons of the*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단체를 이룬다. 그들의 숫자는 370억 명보다 약간 많다. 20억 70명이 중앙우주에, 그리고 50억 명 조금 넘는 숫자가 각 연방우주에 주둔한다.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의 기능상 한계를 묘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들의 행동이 유한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함은 맞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방우주 기록의 처리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_공간 환경이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총괄우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진화에 속하는, 어느 수준의 우주 경영이나 판결에서든지 그들이 행동한다.

5. 영감된 삼위일체 영

나는 **영감(靈感)된 삼위일체 영**들에 대해 너희에게 거의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들이 극소수이고 전적으로 비밀스런 계층의 존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비밀스런 존재인 것은, 분명히, 창조 근원에 그토록 가깝게 기원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그들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 행위로 존재하게 됐으며, 세 분의 **신격**들 전체뿐 아니라,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영**들이 완성된 숫자에 속하는지 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믿고자 한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의 본성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인격을 초월한 영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회로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과 공간에 거의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활동의 본성으로부터 그 성품을 추론하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활동으로 생기는 결과를, 우주들 내부 여기저기서 분명히 목격한다.

어떤 조건들 아래서, 이 **영감받은 영**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에게 감지되기에 충분한 만큼, 스스로를 개별화 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봐왔지만;그들 가운데 하나를 알아보는, 천상의 존재 중에서 낮은 계층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진화하는 우주들을 운영하는 동안,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어떤 존재든지, 자신의 임무를 추진하기 위해 때때로 이 **영**을 직접 사용할지도 모르는 어떤 환경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과, 특별한 환경 아래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때로는 그들의 현존을 알아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물질 창조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될 때까지, 시_공간 우주 운영이 위임된,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조직의 일부분이 아니다.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의 현재 체제나 경영에서, 그들은 뚜렷이 식별될 수 있는 장소들

Trinity. Together they comprise the grand corps of Trinity administrators, rulers, executives, advisers, counselors, and judges. Their numbers slightly exceed thirty-seven billion. Two billion and seventy are stationed in the central universe and just over five billion in each superuniverse.

19:4.9 (219.1) It is very difficult to portray the functional limits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It would be incorrect to state that their acts are finite limited, for there are transactions of superuniverse record which indicate otherwise. They act on any level of universe administration or adjudication that may be required by time-space conditions and that pertains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volution of the master universe.

5. INSPIRED TRINITY SPIRITS

19:5.1 (219.2) I will be able to tell you very little concerni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for they are one of the few wholly secret orders of beings in existence, secret, no doubt,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m fully to reveal themselves even to those of us whose origin is so near the source of their creation. They come into being by the ac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may be utilized by any one or two of the Deities as well as by all three. We do not know whether these Spirits are of completed numbers or are constantly increasing, but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ir number is not fixed.

19:5.2 (219.3) We fully understand neither the nature nor the conduct of the Inspired Spirits. They may possibly belong to the category of superpersonal spirits. They seem to operate over all known circuits and appear to act well-nigh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But we know little about them except as we deduce their character from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the results of which we certainly observe here and there in the universes.

19:5.3 (219.4)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Inspired Spirits can individualize themselves sufficiently for recognition by beings of Trinity origin. I have seen them; but it would never be possible for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o recognize one of them. Certain circumstances also arise from time to time in the conduct of the evolving universes in which any being of Trinity origin may directly employ these Spirits in the furtherance of his assignments. We therefore know that they exist, an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we may command and receive their assistance, sometimes recognize their presence. But they are not a part of the manifest and definitely revealed organization intrusted with the conduct of the time-space universes before such material creation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have no clearly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언젠가 영원한 미래에, **단독 사자**들을 대신해서 활약하게 돼있다고 가르치는데, 삼자일체된 아들의 분명한 유형에 속하는 동역자로서의 임무 때문에, 그들의 직급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영감받은 영들은 온갖 우주에서 홀로 있는 **영**이다. **영**으로서의 그들은, **단독 사자**들이 선명한 인격체임을 제외하고는, **단독 사자**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에 대한 지식 대부분을 **단독 사자**로부터 얻는데, 그들은 **영감받은 영**의 현존에 선천적 민감성을 보이는 덕분에 그들의 근접성을 감지하며, 어떤 나침반이 자극{磁極}을 반드시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단독 사자**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 가까이에 있을 때, 그런 신성한 현존의 질적{質的} 징후와, 또한 매우 분명한 양적 등록사항을 의식하는데, **단독 사자**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영의 현존이나 현존들에 대한 분류와 숫자를 알 수 있다.

나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는데:**유란시아**에서 처럼, **사고 조율사**가 거주민에게 내주하는 어떤 행성에 **단독 사자**가 있을 때, 그는 영 현존을 탐지하는_민감성이 질적으로 자극받을 감지한다. 그런 경우에, 양적 자극은 없고, 오직 질적 동요만 일어난다. **조율사**가 도래하지 않는 행성에 있을 때, 원주민과의 접촉은, 그런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사고 조율사**가 **낙원 삼위일체**의 **영감받은 영**에 어떤 방법으로 관련됐음을, 또는 그들과 연결됐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특정한 국면의 일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그 두 존재가 만물의 근원 및 중심 근처에서 기원되지만, 같은 계층의 존재는 아니다. **사고 조율사**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며;**영감받은 영**은 **낙원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영감받은 영들은 외견상 개별 행성 또는 우주 진화 개요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럼에도 그들은 거의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계층의 **영** 현존을 가리키는, 나와 연합된 **단독 사자**의 개인적 민감성은, 이 순간에 25피트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서, **영감받은** 계층, 그리고 동력 현존의 셋째 부분에 해당하는 존재인 어떤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가리킨다. 셋째 부분의 동력 현존은, 세 명의 **영감받은 영**이 접촉하면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현재 나와 연합된 열 두 계층 이상의 존재들 중에서, **단독 사자**만이 유일하게, **삼위일체**의 이

discernible place in the present economy or administration of the evolving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a secret of the Paradise Trinity.

19:5.4 (219.5) The Melchizedeks of Nebadon teach that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destined, sometime in the eternal future, to function in the places of the Solitary Messengers, whose ranks are slowly but certainly being depleted by their assignment as associates of certain types of trinitized sons.

19:5.5 (219.6) The Inspired Spirits are the solitary Spir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Spirits they are very much like the Solitary Messengers except that the latter are distinct personalities. We obtain much of our knowledge of the Inspired Spirits from the Solitary Messengers, who detect their nearness by virtue of an inherent sensitivity to the presence of the Inspired Spirits which functions just as infallibly as a magnetic needle points to a magnetic pole. When a Solitary Messenger is near an Inspired Trinity Spirit, he is conscious of a qualitative indication of such a divine presence and also of a very definite quantitative registration which enables him actually to know the classification or number of the Spirit presence or presences.

19:5.6 (220.1) I may relate a further interesting fact: When a Solitary Messenger is on a planet whose inhabitants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as on Urantia, he is aware of a qualitative excitation in his detection-sensitivity to spirit presence. In such instances there is no quantitative excitation, only a qualitative agitation. When on a planet to which Adjusters do not come, contact with the natives does not produce any such reaction. This suggests that Thought Adjusters are in some manner related to, or are connected with, the Inspired Spirits of the Paradise Trinity. In some way they may possibly be associated in certain phases of their work; but we do not really know. They both originate near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things, but they are not the same order of being. Thought Adjusters spring from the Father alone; Inspired Spirits are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19:5.7 (220.2) The Inspired Spirits do not apparently belong to the evolutionary scheme of the individual planets or universes, and yet they seem to be almost everywhere. Even as I am engaged in the formulation of this statement, my associated Solitary Messenger's personal sensitivity to the presence of this order of Spirit indicates that there is with us at this very moment, not over twenty-five feet away, a Spirit of the Inspired order and of the third volume of power presence. The third volume of power presence suggests to us the probability that three Inspired Spirits are functioning in liaison.

19:5.8 (220.3) Of more than twelve orders of beings associated with me at this time, the Solitary

신비스런 실재의 현존을 자각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신성한 영들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는 반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두 똑같이 모르고 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지, 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행업무의 성공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이 우주 피조물의 의식 계몽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나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초의식 기법으로 그 영역의 선생으로서 활약하기도 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방대한 내용의 영적 기본 지식, 즉 높은 영적 성취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며; 자아-의식은 확실한 수용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개념이 옳고, 내 계층 전체가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즉 도덕적 계몽과 영적 증진에 대한 보편적 개요 안에 있는 이 간격에 다리를 놓는 일이, 이 **영감받은 영**의 사명일지도 모른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이 두 유형의 교사가 활동하면서 어떤 종류의 접촉을 취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연방우주 훈련 세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보나 회로**에서, 나는 완성돼가는 필사자들과--즉 진화하는 영역들로부터 영성화 된 상승하는 혼들과--관계를 맺어 왔지만, **영감받은 영**들이 때때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단독 사자** 안에 있는 감지 능력이 가리키는 데도, 이 필사자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나는 높거나 낮은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과 자유롭게 교체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의 혼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영들의 행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체험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단독 사자**, 그리고 때로는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들을 제외하고, 천상의 계통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감받은 영**의 근접성을 의식한 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나와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내가 그들과 연락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내게 나타내기를 어렵게 시도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어려움과 제한은 상호적이고 내재적임에 틀림없다. 나는 우주에 독단적 비밀이 없음에 대해 만족하며; 그러므로 나는 나와 같은 계층의 창조물에 속하는 이 영들이 분리돼 있는 신비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한 여행에 첫 발을 방금 디디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봄”으로써 그리고 “물질적” 확신에 따라 진보하기 전에, 먼 길을 전진해야만 됨을 잘 알 수 있을 것이

Messenger is the only on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se mysterious entities of the Trinity. And further, while we are thus apprised of the nearness of these divine Spirits, we are all equally ignorant of their mission. We really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merely interested observers of our doings, or whether they are, in some manner unknown to us, actually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ur undertaking.

19:5.9 (220.4) We know that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devoted to the *conscious* enlightenment of universe creatures. I have arrived at the settled conclusion that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by *superconscious* techniques, are also functioning as teachers of the realms. I am persuaded that there is a vast body of essential spiritual knowledge, truth indispensable to high spiritual attainment, which cannot be consciously received; self-consciousness would effectively jeopardize the certainty of reception. If we are right in this concept, and my entire order of being shares it, it may be the mission of these Inspired Spirit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to bridge this gap in the universal scheme of moral enlightenment and spiritual advancement. We think that these two types of Trinity-origin teachers effect some kind of liaison in their activities, but we do not really know.

19:5.10 (220.5) On the superuniverse training worlds and on the eternal circuits of Havona, I have fraternized with the perfecting mortals — spiritualized and ascendant souls from the evolutionary realms — but never have they been aware of the Inspired Spirits, which ever and anon the powers of detection resident in the Solitary Messengers would indicate were very near us. I have freely conversed with all orders of the Sons of God, high and low, and they likewise are unconscious of the admonitions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They can and do look back in their experiences and recount happenings which are difficult to explain if the action of such Spirits is not taken into account. But excepting Solitary Messengers, and sometimes Trinity-origin beings, none of the celestial family have ever been conscious of the nearness of the Inspired Spirits.

19:5.11 (221.1) I do not believe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playing hide and seek with me. They are probably trying just as hard to disclose themselves to me as I am to communicate with them; our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must be mutual and inherent. I am satisfied that there are no arbitrary secrets in the universe; therefore will I never cease in my efforts to solve the mystery of the isolation of these Spirits belonging to my order of creation.

19:5.12 (221.2) And from all this, you mortals, just now taking your first step on the eternal journey, can well see that you must advance a long way before you will progress by “sight” and “material”

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보하기를 희망한다면, 너희는 신앙을 오래도록 활용하고 계시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assurance. You will long use faith and be dependent on revelation if you hope to progress quickly and safely.

6. 하보나 원주민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 삼위일체**가 직접 창조한 존재이며, 그들의 숫자는 너희의 제한된 정신 개념을 초월한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종족 같은, 그런 신성하게 완전한 피조물의 선천적 재능을 **유란시아인**이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 너희는 이 영화로운 피조물을 정말로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며;**하보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영 동지로서 그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 문화에 속하는 10억 세계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이 찬란한 존재들과 영원한 친분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간 세계로부터 온 가장 저급한 인격있는 피조물과, 중앙우주의 완전한 구체들에서 태어난 이 높은 인격있는 존재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 친분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과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스런 연합을 이루면서, 필사자로서 진보하는 초기 단계의 영적 영양부족을 크게 보상받을 것이다. 동시에,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맺는 접촉을 통해서, **하보나** 주민은 신성하게 완전한 생애를 살면서 항상 가졌던 체험적 장애를 적지 않게 극복하는 어떤 체험을 얻는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하보나** 원주민 양쪽 다 서로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하보나 원주민은,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다른 모든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완비되도록 기획됐고,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다른 인격체들처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험 재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상비 아들**과는 달리, **하보나** 주민은 신분에서 진보할 것인데,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영원성_운명을 가질지도 모른다. **조울사**가 아닌 **아버지** 단편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봉사함으로_실제화 하고, 그렇게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가는 신분을 갖추는 바로 그 **하보나** 주민이 이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중앙우주의 이 원주민에게 열려있는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들이 있다.

하보나 원주민 신분의 진화가, **우버사**에서 많은 추측을 일으켜 왔다. 그들이 여러 **낙원 완결성 단체**에 계속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하보나**에 머무는 원주민 숫자는 분명히 계속 줄어든다. 이 진행사항의 궁극적 결과가 우리에게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보나**가 자체 원주민을 완전히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외부 공간 층의 이어지는 창조 시대 동안, 언젠가 완결성취자 단체에 **하보나** 주민이 들어가기를 아마 멈추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환영해 왔다. 또한 우리

6. HAVONA NATIVES

19:6.1 (221.3) The Havona natives are the direct cre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ir number is beyond the concept of your circumscribed minds. Neither is it possible for Urantians to conceive of the inherent endowments of such divinely perfect creatures as these Trinity-origin races of the eternal universe. You can never truly envisage these glorious creatures; you must await your arrival in Havona, when you can greet them as spirit comrades.

19:6.2 (221.4) During your long sojourn on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culture you will develop an eternal friendship for these superb beings. And how deep is that friendship which grows up between the lowest personal creature from the worlds of space and these high personal beings native to the perfect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Ascending mortals, in their long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Havona natives, do much to compensate for the spiritual impoverishment of the earlier stages of mortal progress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ir contacts with ascending pilgrims, the Havoners gain an experience which to no small extent overcomes the experiential handicap of having always lived a life of divine perfection. The good to both ascending mortal and Havona native is great and mutual.

19:6.3 (221.5) Havona natives, like all other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re projected in divine perfection, and as with other Trinity-origin personalities, the passing of time may add to their stores of experiential endowments. But unlik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Havoners may evolve in status, may have an unrevealed future eternity-destiny. This is illustrated by those Havoners who service-factualize capacity for fusion with a non-Adjuster Father fragment and so qualify for membership in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re are other finaliter corps open to these natives of the central universe.

19:6.4 (221.6) The status evolution of Havona natives has occasioned much speculation on Uversa. Since they are constantly filtering into the several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and since no more are being created, it is apparent that the number of natives remaining in Havona is constantly diminishing.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these transactions have never been revealed to us, but we do not believe that Havona will ever be entirely depleted of its natives. We have entertained the theory that Havoners will possibly cease entering

는, 이런 이어지는 우주 시대에, 혼합된 집단의 거주 존재로, 즉 원래 **하보나** 원주민 가운데 일부만 구성하는 어떤 시민 신분의 존재로 중앙우주가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환영해 왔다. 어떤 계층 또는 유형의 피조물이 미래의 **하보나**에서 거주 신분을 그렇게 갖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 지방우주 성좌{星座}의 현재 영구 시민인 유니비타시아.

2. 빛과 생명의 시대가 개화{開花}될 때, 연방우주의 인간거주 구체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필사자의 미래 유형들.

3. 이어지는 외부 우주에서 유입되는 영적 특권계층.

예전 우주 시대의 **하보나**는 현재 우주 시대의 **하보나**와 어느 정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중앙우주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시하는 그런 느린 변화를 우리가 따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일리 있다고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우주는 정지돼 있지 않으며;오직 **하나님**만 변화가 없다.

7. 낙원 시민

낙원에는 수많은 집단의 훌륭한 존재, 즉 **낙원 시민**이 거주한다. 그들은 의지를 지닌 상승하는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기획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충분하게 계시되지 않는다. 3천 개가 넘는 이 숭고한 지성체 계층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집단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곱 연방우주의 창조 계획을 선포한 **삼위일체**의 명령과 동시에 인격화됐다.

낙원 시민과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 하보나** 인격체로서 집단으로 명명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으로,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하게 한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들은 통행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스라빔 같은 운송 인격체에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온갖 우주에서 자유롭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단독 사자**들처럼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공간 운송 수단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

the finaliter corps sometime during the ages of the successive creations of the outer space levels. We have also entertained the thought that in these subsequent universe ages the central universe may be peopled by a mixed group of resident beings, a citizenship consisting only in part of the original Havona natives. We do not know what order or type of creature may be thus destined to residential status in the future Havona, but we have thought of:

19:6.5 (222.1) 1. The univitatia, who are at present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constellations.

19:6.6 (222.2) 2. Future types of mortals who may be born on the inhabited spheres of the superuniverses in the flowering of the ages of light and life.

19:6.7 (222.3) 3. The incoming spiritual aristocracy of the successive outer universes.

19:6.8 (222.4) We know that the Havona of the previous universe age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Havona of the present age. We deem it no more than reasonable to assume that we are now witnessing those slow changes in the central universe that are anticipatory of the ages to come. One thing is certain: The universe is nonstatic; only God is changeless.

7. PARADISE CITIZENS

19:7.1 (222.5) There are resident on Paradise numerous groups of superb beings, the Paradise Citizens. They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scheme of perfecting ascending will creatures and are not, therefore, fully revealed to Urantia mortals. There are more than three thousand orders of these supernal intelligences, the last group having been personalized simultaneously with the mandate of the Trinity which promulgated the creative pla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19:7.2 (222.6) Paradise Citizens and Havona natives are sometimes designated collectively as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19:7.3 (222.7) This completes the story of those beings who are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Paradise Trinity. None of them have ever gone astray. And yet, in the highest sense, they are all freewill endowed.

19:7.4 (222.8) Trinity-origin beings possess prerogatives of transit which make them independent of transport personalities, such as seraphim. We all possess the power of moving about freely and quickly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Excepti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we cannot attain the almost unbelievable velocity

문에, 한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그 연방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우버사**에서 **유란시아**로 여행하는 데는, 너희 시간으로 109일 걸렸다.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인 상호교신이 가능하다. 우리 창조물 계층 전체는, 오직 **영감받은 영**들만 제외하고, **낙원 삼위일체** 자신의 모든 부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과 접촉할 수 있다.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of the Solitary Messengers, but we are able so to utilize the sum total of the transport facilities in space that we can reach any point in a superuniverse, from its headquarters, in less than one year of Urantia time. It required 109 days of your time for me to journey from Uversa to Urantia.

19:7.5 (222.9) Through these same avenues we are enabled to intercommunicate instantaneously. Our entire order of creation finds itself in touch with every individual embraced within every division of the children of the Paradise Trinity save only the Inspired Spirits.

19:7.6 (222.10)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20편. 하나님의 낙원 아들

⇨ 019

유랜시아 책

021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0편
하나님의 낙원 아들

섹션

소개

1.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
2. 집행관 아들
3. 사법 행위
4. 집행관 사명
5. 하나님의 낙원 아들 증여
6. 필사자 증여 생애
7. 삼위일체 교사 아들
8. 데이날의 지방우주 사역
9. 데이날의 행성 봉사
10. 낙원 아들들의 연합 사역

PAPER 20
THE PARADISE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2. The Magisterial Sons
3. Judicial Actions
4. Magisterial Missions
5. Bestow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6. The Mortal-Bestowal Careers
7. The Trinity Teacher Sons
8. Local Universe Ministry of the Daynals
9. Planetary Service of the Daynals
10. United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소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활동할 때, 세 가지 일반 항목으로 분류된다:

1. **하강{下降}하는, 하나님의 아들.**
2. **상승{上昇}하는, 하나님의 아들.**
3.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은, 신이 직접 창조한 인격체들을 포함한다. 필사 피조물 같은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라고 알려진 창조 기법에 체험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신분을 획득한다.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은 혼합 기원에 해당하는 집단인데, **삼위일체**에서 직접 기원되지 않더라도, **낙원 삼위일체**가 받아들인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1.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

INTRODUCTION

20:0.1 (223.1) AS THEY function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Sons of God are classified under three general heads:

20:0.2 (223.2)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20:0.3 (223.3) 2. The Ascending Sons of God.

20:0.4 (223.4) 3. The Trinitized Sons of God.

20:0.5 (223.5) Descending orders of sonship include personalities who are of direct and divine creation. Ascending sons, such as mortal creatures, achieve this status by experiential participation in the creative technique known as evolution. Trinitized Sons are a group of composite origin which includes all beings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even though not of direct Trinity origin.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하강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높고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체계에서 진화함으로 기원된 저급한 피조물이--곧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낙원**으로 올라가도록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거기서 하강하는 봉사 사역에 헌신한다. 수많은 하강하는 **아들** 계층 가운데, 일곱 가지가 이 장에서 서술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있는 **신격**들로부터 나오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낙원 아들**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세 계층을 포함한다:

1. **창조주 아들 --미가엘.**
2. **집정관 아들 --아보날.**
3. **삼위일체 교사 아들 --데이날.**

하강하는 아들신분 가운데 나머지 네 계층은,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로 알려진다:

4. **멜기세덱 아들.**
5. **보론다덱 아들.**
6. **라노난덱 아들.**
7. **생명 운반자.**

멜기세덱은,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 **창조적 영**, 및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동 후손이다. 모든 **보론다덱**과 **라노난덱**은, **창조주 아들**과 그의 **창조적 영** 동역자가 낳는다. **보론다덱**은, **지고자**, 즉 **성좌 아버지**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라노난덱**은 **체계 주권자** 및 **행성 왕자**로서 알려져 있다. 삼중 계층인 **생명 운반자**는, 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연방우주 관할권을 갖는 세 **태고 항존자** 가운데 하나와 연합해서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방우주 아들**들의 본성과 활동은, 지방 창조계 직무를 다루는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은 세 가지로 기원된다: 1차 **아들**, 즉 **창조주 아들**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낳으며; 2차 **아들**, 즉 **집정관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자녀이며;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자손이다. 봉사, 경배, 및 간청의 관점에서 보면, **낙원 아들**들은 하나 같으며; 그들의 영은 하나이고, 그들의 활동은 질{質}과 완비됨에서 동일하다.

낙원 항존자 계층이 신성한 경영자임을 입증했듯이, **낙원 아들** 계층은 신성한 사역자로서--곧 창조자, 봉사자, 증여자, 재판관, 선생, 및 진리 계시자로서-- 자신을 계시해 왔다. 그들은 영원한 **섬**의 기슭에서부터, 인간이 거주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주를 정렬시키는

20:1.1 (223.3) All descending Sons of God have high and divine origins. They are dedicated to the descending ministry of service on the worlds and systems of time and space, there to facilitate the progress in the Paradise climb of the lowly creatures of evolutionary origin — the ascending sons of God. Of the numerous orders of descending Sons, seven will be depicted in these narratives. Those Sons who come forth from the Deities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are called the *Paradise Sons of God* and embrace the following three orders:

20:1.2 (223.4) 1. Creator Sons — the Michaels.

20:1.3 (223.5) 2. Magisterial Sons — the Avonals.

20:1.4 (223.6) 3. Trinity Teacher Sons — the Daynals.

20:1.5 (223.7) The remaining four orders of descending sonship are known as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20:1.6 (223.8) 4. Melchizedek Sons.

20:1.7 (223.9) 5. Vorondadek Sons.

20:1.8 (223.10) 6. Lanonandek Sons.

20:1.9 (223.11) 7. The Life Carriers.

20:1.10 (223.12) Melchizedeks are the joint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Creator Son, Creative Spirit, and Father Melchizedek. Both Vorondadeks and Lanonandeks are brought into being by a Creator Son and his Creative Spirit associate. Vorondadeks are best known as the Most Highs, the Constellation Fathers; Lanonandeks as System Sovereigns and as Planetary Princes. The threefold order of Life Carriers is brought into being by a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associated with one of the thre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jurisdiction. But the natures and activities of these Local Universe Sons of God are more properly portrayed in those paper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the local creations.

20:1.11 (224.1) The Paradise Sons of God are of threefold origin: The primary or Creator Son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secondary or Magisterial Sons are children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the offspring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From the standpoint of service, worship, and supplication the Paradise Sons are as one; their spirit is one, and their work is identical in quality and completeness.

20:1.12 (224.2) As the Paradise orders of Days proved to be divine administrators, so have the orders of Paradise Sons revealed themselves as divine ministers — creators, servers, bestowers, judges, teachers, and truth revealers. They range the universe of universes from the shores of the

데, 본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복합적인 봉사를, 중앙 및 연방우주들에서 수행한다. 그들은 봉사하는 종류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되지만, 지방 우주에서는 **집정관** 및 **교사 아들**들 모두, 그 영토를 관장하는 **창조주 아들**의 지시 아래서 근무한다.

창조주 아들들은 자신의 인격자 속에 중심 두는 영적 재능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영을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필사자 육신에게 부어줬을 때처럼, 이 재능을 증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각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영적으로 당기는 이 힘을 부여받았으며; 자신의 영토에서 봉사하면서 하강하는 각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직접 의식한다. **영원한 아들**의 절대 영적 흡인력에 대한 신성한 다편, 즉 지방우주 복제품(複製品)이 여기 있는데, **낙원 아들**들이 이 온갖 우주에서 어디 있든지, 그들 전체와 접촉하고 유지하기 위한 **영원한 아들**의 접근을, 그 흡인력이 가능하게 한다.

낙원 창조주 아들들은, 하강하면서 봉사와 증여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아들**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증여 생애를 완성한 후에도 일하며, 각자는 자신의 고유 창조물 안에서 우주 **아버지**로서 활동하는 반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행성을 하나하나 쟁취하도록 고안된, 증여하는 봉사와 영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계속하는데, **낙원 아버지**의 뜻에 피조물이 헌신할 때, 그리고 그의 **창조주 아들**의 우주 주권에 행성이 충성할 때 최고점에 달한다.

칠중 **창조주 아들**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해심 있고 동정적이며 자비로운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한데 어우러진다. **미가엘**, 즉 **창조주 아들** 계층 전체는 너무 독특하므로, 그들의 본성과 활동에 대한 고려는 본 장과 연결되는 다음 문서에서 설명될 것이며, 한편 본 장에서는 주로 **낙원 아들**신분의 나머지 두 계층, 즉: **집정관 아들** 및 **삼위 일체 교사 아들**들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2. 집정관 아들

영원한 아들이 수립한 원래의 절대 개념이, **무한한 영**이 구상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새롭고 신성한 이상(理想)과 결합할 때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하나님의 아들**, 즉 **낙원 집정관 아들**이 산출된다. 이 **아들**들은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 계통과는 대조적으로, **아보날** 계통을 구성한다. 그들은 친히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창조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전체 업무에서 **미가엘**과 긴밀하게 연합해 있다. **아보날**은 행성 사역자 및 재판관, 즉 시_공간 영역에서--곧 모든 인종의, 모든 세계에 대한, 그리고 모든 우주에서-- 집정관(執政官)이다.

eternal Isle to the inhabited worlds of time and space, performing manifold services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not disclosed in these narratives. They are variously organized, dependent on the nature and whereabouts of their service, but in a local universe both Magisterial and Teacher Sons serv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reator Son who presides over that domain.

20:1.13 (224.3) The Creator Sons seem to possess a spiritual endowment centering in their persons, which they control and which they can bestow, as did your own Creator Son when he poured out his spirit upon all mortal flesh on Urantia. Each Creator Son is endowed with this spiritual drawing power in his own realm; he is personally conscious of every act and emotion of every descending Son of God serving in his domain. Here is a divine reflection, a local universe duplication, of that absolute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Eternal Son which enables him to reach out to make and maintain contact with all his Paradise Sons, no matter where they may b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20:1.14 (224.4) The Paradise Creator Sons serve not only as Sons in their descending ministrations of service and bestowal, but when they have completed their bestowal careers, each functions as a universe Father in his own creation, while the other Sons of God continue the service of bestowal and spiritual uplifting designed to win the planets, one by one, to the willing recognition of the loving rule of the Universal Father, culminating in creature consecration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and in planetary loyalty to the universe sovereignty of his Creator Son.

20:1.15 (224.5) In a sevenfold Creator Son, Creator and creature are forever blended in understanding, sympathetic, and merciful association. The entire order of Michael, the Creator Sons, is so unique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ir natures and activities will be reserved to the next paper in this series, while this narrative will be chiefly concerned with the two remaining orders of Paradise sonship: the Magisterial Son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2. THE MAGISTERIAL SONS

20:2.1 (224.6) Every time an original and absolute concept of being formulated by the Eternal Son unites with a new and divine ideal of loving service conceived by the Infinite Spirit, a new and original Son of God, a Paradise Magisterial Son, is produced. These Sons constitute the order of Avonals in contradistinction to the order of Michael, the Creator Sons. Though not creators in the personal sense,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ichaels in all their work. The Avonals are planetary ministers and judges, the magistrates of the time-space realms — of all races, to all

우리는 광우주에서 **집정관 아들** 전체 숫자가 약 10억 명이라고 믿을만한 까닭이 있다. 그들은 자체_통치 계층인데, **낙원**에 있는 자체 최고 협의회의 지시를 받으며, 그 위원회는 전체 우주 근무자 중에서 뽑힌, 체험 있는 **아보날**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방우주에 배정되고 위임될 때, 그 영토의 **창조주 아들**의 지시 아래서 근무한다.

아보날들은, 지방우주 개별 행성에게 봉사하고 참여하는 **낙원 아들**이다. 그리고 각 **아보날 아들**이 독특한 인격을 소유하기 때문에, 즉 어느 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자신이 머무는 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독특하며, 거기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종종 육신화하고, 때로는 진화 세계의 세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아보날들은, 고등 경영 수준에서 봉사하는 외에도,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1. **사법 행위.** 그들은 행성 섭리시대가 마무리될 때마다 행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_수백_의 그런 사명이 각 개별 세계에서 수행될 것이며, 그들은 섭리시대 종결자, 즉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수없이 여러 번, 같은 세계 또는 다른 세계들로 가게 될 것이다.

2. **집정관의 사명.** 이 유형의 행성 방문은 대개 증여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다. 그런 사명이 있을 경우에, **아보날**은 필사자로서 탄생하지 않고, 육신화 기법으로 그 영역의 어른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일상적인 집정관 방문이 처음으로 있는 후에, **아보날**은 집정관 자격으로, 증여 **아들**이 출현하기 전과 후에, 같은 행성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다. 이런 추가적 집정관 사명의 경우에, **아보날**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지 그 세계에 무능한 한 아기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3. **증여 사명.** **아보날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에서 어떤 필사자 인종에게 자신을 증여한다. 심판을 위한 방문이 수없이 많이 있고, 집정관 사명이 여러 번 있지만, 각 행성에는 오직 한 명의 증여 **아들**만 나타난다. 증여 **아보날**들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했던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아보날 아들이 집정관 사명과 증여 사명에 봉사하게 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개, 그 체험을 일곱 번 거쳤을 때, 그런 봉사를 적게 한 자들을 위해 중지된다. 여러 번 증여 체험을 가진 **아들**들은, 그때 한 **창조주 아들**의 높은 개인 협의회에 배정되고, 그리하여 우주 직무의 경영에 참여한다.

worlds, and in all universes.

20:2.2 (225.1) We have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total number of Magisterial Sons in the grand universe is about one billion. They are a self-governing order, being directed by their supreme council on Paradise, which is made up of experienced Avonals drawn from the services of all universes. But when assigned to, and commissioned in, a local universe, they serv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reator Son of that domain.

20:2.3 (225.2) Avonals are the Paradise Sons of service and bestowal to the individual planets of the local universes. And since each Avonal Son has an exclusive personality, since no two are alike, their work is individually unique in the realms of their sojourn, where they are ofte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sometimes are born of earthly mothe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20:2.4 (225.3) In addition to their services on the higher administrative levels, the Avonals have a threefold function on the inhabited worlds:

20:2.5 (225.4) 1. *Judicial Actions.* They act at the close of the planetary dispensations. In time, scores — hundreds — of such missions may be executed on each individual world, and they may go to the same or to other worlds times without number as dispensation terminators, liberators of the sleeping survivors.

20:2.6 (225.5) 2. *Magisterial Missions.* A planetary visitation of this type usually occurs prior to the arrival of a bestowal Son. On such a mission an Avonal appears as an adult of the realm by a technique of incarnation not involving mortal birth. Subsequent to this first and usual magisterial visit, Avonals may repeatedly serve in a magisterial capacity on the same planet both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the bestowal Son. On these additional magisterial missions an Avonal may or may not appear in material and visible form, but on none of them will he be born into the world as a helpless babe.

20:2.7 (225.6) 3. *Bestowal Missions.* The Avonal Sons do all, at least once, bestow themselves upon some mortal race on some evolutionary world. Judicial visits are numerous, magisterial missions may be plural, but on each planet there appears but one bestowal Son. Bestowal Avonals are born of woman as Michael of Nebadon was incarnated on Urantia.

20:2.8 (225.7)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imes the Avonal Sons may serve on magisterial and on bestowal missions, but usually, when the experience has been seven times traversed, there is suspension in favor of those who have had less of such service. These Sons of multiple bestowal experience are then assigned to the high personal council of a Creator Son, thus becoming

집정관 아들은, 인간거주 세계를 위해 거기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에서, 지방우주 피조물 가운데 두 계층, 즉 **멜기세덱**과 천사장의 도움을 받으며, 한편 증여 사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지방 창조계에서 기원된 **찬란한 저녁별**들과 동행한다. 2차 **낙원 아들**, 즉 **아보날**은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경우에, 자신이 이바지하는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인, 1차 **낙원 아들**의 충분한 능력과 권세로 후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인간거주 구체에서 그들의 업무는, 필사자 주거지인 그런 세계에서 **창조주 아들**이 베푸는 봉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만족스럽다.

3. 사법 행위

아보날들은 **집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역의 고등 집정관, 즉 덧없는 세상들의 이어지는 섭리시대에 대한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그 영역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며, 응보가 일시 중지됐던 섭리시대를 끝내고, 보호관찰 하는 자비의 시대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행성에서 사역하는 공간 피조물을 새로운 섭리시대의 과제에 재배치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로 돌아간다.

한 시대의 운명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때, **아보날**이 진화 인종의 운명을 정하지만, 인격있는 피조물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런 판결문을 그들이 집행하지는 않는다. 연방우주 당국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런 성격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

한 섭리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과, 행성 진보의 새로운 시절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낙원 아보날**이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집정관 사명 또는 증여 사명일 필요는 없다. 집정관 사명이 때로는, 그리고 증여 사명은 언제나, 육신화에 해당하며; 다시 말해서, **아보날**은 그런 임무의 경우에 --글자 그대로-- 물질 형태를 입고 행성에서 근무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은 “인위적”인 경우이며, 이런 수용력에서는 **아보날**이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 하지 않는다. **집정관 아들**이 오직 섭리시대 재판관으로서 온다면,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할 것인데, 그 영역에서 물질 피조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인위적 방문은, 인간거주 세계의 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집정관의 체험과 증여 체험 이전에, **아보날 아들**은 행성의 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사명 가운데 어느 경우든지, 지나가는

participants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20:2.9 (225.8) In all their work for and on the inhabited worlds, the Magisterial Sons are assisted by two orders of local universe creatures, the Melchizedeks and the archangels, while on bestowal missions they are also accompani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likewise of origin in the local creations. In every planetary effort the secondary Paradise Sons, the Avonals, are supported by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of a primary Paradise Son, the Creator Son of their local universe of service.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ir work on the inhabited spheres is just as effective and acceptable as would have been the service of a Creator Son upon such worlds of mortal habitation.

3. JUDICIAL ACTIONS

20:3.1 (226.1) The Avonals are known as Magisterial Sons because they are the high magistrates of the realms, the adjudicators of the successive dispensations of the worlds of time. They preside over the awakening of the sleeping survivors, sit in judgment on the realm, bring to an end a dispensation of suspended justice, execute the mandates of an age of probationary mercy, reassign the space creatures of planetary ministry to the tasks of the new dispensation, and return to the headquarters of their local universe upon the completion of their mission.

20:3.2 (226.2) When they sit in judgment on the destinies of an age, the Avonals decree the fate of the evolutionary races, but though they may render judgments extinguishing the identity of personal creatures, they do not execute such sentences. Verdicts of this nature are executed by none but the authorities of a superuniverse.

20:3.3 (226.3) The arrival of a Paradise Avonal on an evolutionary world for the purpose of terminating a dispensation and of inaugurating a new era of planetary progression is not necessarily either a magisterial mission or a bestowal mission. Magisterial missions sometimes, and bestowal missions always, are incarnations; that is, on such assignments the Avonals serve on a planet in material form — literally. Their other visits are “technical,” and in this capacity an Avonal is not incarnated for planetary service. If a Magisterial Son comes solely as a dispensational adjudicator, he arrives on a planet as a spiritual being, invisible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 Such technical visits occur repeatedly in the long history of an inhabited world.

20:3.4 (226.4) Avonal Sons may act as planetary judges prior to both the magisterial and bestowal experiences. On either of these missions,

행성 시대를 육신화 된 **아들이** 재판할 것이며; 인간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여하는 사명을 띠고 육신화 할 때, **창조주 아들**도 그렇게 한다. **낙원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때, 그가 계심으로써 한 섭리시대가 종결되고, 그 영역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다.

4. 집행관 사명

증여 **아들이** 행성에 출현하기 전에, 인간거주 세계에는 대개 집행관 사명을 띤 **낙원 아보날**이 방문한다. 그것이 첫 번째 **집정관** 방문이라면, 그 **아보날**은 항상 물질 존재로 육신화 한다. 그는 배정된 행성에 필사자 인종 가운데 완전히 성장한 남자, 즉 그의 시대와 자손에 해당하는 필사 피조물에게 충분히 보일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집정관**이 육신화 돼있는 동안 내내, 그 지방 및 우주의 영적 힘과 **아보날 아들**의 연결은 완벽하고 중단되지 않는다.

행성은, 증여 **아들이** 출현하기 전과 후에 집행관의 방문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동일한 **아보날** 또는 다른 **아보날**들이 그 행성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섭리시대 재판관으로서 활동하지만, 심판하는 그런 인위적 사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관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아보날**들은 그런 경우에 결코 육신화 하지 않는다. 행성이 반복적인 집행관 사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더라도, **아보날**들이 필사자 육신화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근무할 때에는, 항상 그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나며;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증여 사명 또는 집행관 사명에 따라 육신화됐을 때, **낙원 아들**은 체험된 **조울사**를 소유하고, 이 **조울사**는 각 육신화마다 다르다. 증여된 **하나님의 아들**의 정신을 점유하는 **조울사**는, 자신이 내주한 인간적인 신성한 존재와의 융합을 통해서 인격체가 되기를 결코 바랄 수 없지만,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종종 인격화된다. 그런 **조울사**들은, 인간거주 영역을 향한 **신비 관찰자**들의 경영, 신원확인, 및 파견을 위해서 지시하는 최고 **디비닝톤** 협의회를 형성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거하던 장막(帳幕)이 필사의 분해를 겪고 나서, 이들은 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울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 재판관의 신실한 **조울사**는 그들 부류 중에서 높은 우두머리가 된다.

유란시아는, 집행관 사명을 띤 **아보날 아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유란시아**가 인간거주 세계에 대한 일반 계획을 따랐더라면, **아담** 시대와 **그리스도 미가엘** 증여 사이에 언젠가, 집행관 사명으로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행성

however, the incarnated Son will judge the passing planetary age; likewise does a Creator Son when incarnated on a mission of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When a Paradise Son visits an evolutionary world and becomes like one of its people, his presence terminates a dispensation and constitutes a judgment of the realm.

4. MAGISTERIAL MISSIONS

20:4.1 (226.5) Prior to the planetary appearance of a bestowal Son, an inhabited world is usually visited by a Paradise Avonal on a magisterial mission. If it is an initial magisterial visitation, the Avonal is always incarnated as a material being. He appears on the planet of assignment as a full-fledged male of the mortal races, a being fully visible to, and in physical contact with, the mortal creatures of his day and generation. Throughout a magisterial incarnation the connection of the Avonal Son with the local and the universal spiritual forces is complete and unbroken.

20:4.2 (226.6) A planet may experience many magisterial visitations both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a bestowal Son. It may be visited many times by the same or other Avonals, acting as dispensational adjudicators, but such technical missions of judgment are neither bestowal nor magisterial, and the Avonals are never incarnated at such times. Even when a planet is blessed with repeated magisterial missions, the Avonals do not always submit to mortal incarnation; and when they do serv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y always appear as adult beings of the realm; they are not born of woman.

20:4.3 (227.1) When incarnated on either bestowal or magisterial missions, the Paradise Sons have experienced Adjusters, and these Adjusters are different for each incarnation. The Adjusters that occupy the minds of the incarnated Sons of God can never hope for personality through fusion with the human-divine beings of their indwelling, but they are often personalized by fiat of the Universal Father. Such Adjusters form the supreme Divinington council of direction for the administration, identification, and dispatch of Mystery Monitors to the inhabited realms. They also receive and accredit Adjusters on their return to the “bosom of the Father” upon the mortal dissolution of their earthly tabernacles. In this way the faithful Adjusters of the world judges become the exalted chiefs of their kind.

20:4.4 (227.2) Urantia has never been host to an Avonal Son on a magisterial mission. Had Urantia followed the general plan of inhabited worlds, it would have been blessed with a magisterial mission sometime between the days of Adam and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But the regular

에서 **낙원 아들**들의 정규 순서는, 1,900년 전에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최종 증여 임무를 띠고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흐트러졌다.

유란시아는 집정관 사명을 띠고 육신화 하도록 위임받은 한 **아보날**의 방문을 아직도 받을 수 있지만, **낙원 아들**들의 장래 출현을 고려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런 방문의 시기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미가엘**이 증여된 세계는 **으뜸 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런 경우에는 그의 고유한 계획과 통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리고 너희 세계의 경우에, 이것은 **미가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더욱 복잡하게 됐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된 오해와는 상관없이, 한 가지는--곧 너희 세계에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은-- 분명히 믿을 만하다. 이런 예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방문하는 장래 순서는,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날 것이다.

5. 하나님의 낙원 아들 증여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첫” 사고(思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이 **원본 아들**이 몸소 복제하는 일, 즉 신(神)의 확장이 필사자 육신화라는 증여 사명에서 시작할 때, 신성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이뤄졌으며, 그리하여 그 **말씀**은 동물에서 기원된 하위 존재들 가운데 그렇게 거했다.

아들이 증여되기로 결단한 것이 **만유의 아버지**의 입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다는 믿음이 **유란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아보날**과 **미가엘 아들**의 증여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 **아들**들을 민족과 행성에 대한 안전하고 동정적(同情的)인 집정관 및 통치자로 만들려고 고안한 체험 과정에 필연적인 부분이다. 일곱 번 증여한 경력은 모든 **낙원 창조주 아들**의 최고 목표다. 그리고 모든 **집정관 아들**은, 1차 **창조주 아들**들 및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특징을 매우 많이 나타내는, 바로 이 봉사 정신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정상 인간 정신에 **사고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필사_인간거주 세계에 어떤 계층의 **낙원 아들**이 증여돼야 하는데,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여되기 전에는, **조율사**가 진실한 인간 전부에게 오지는 않기 때문이며; **진리의 영**을 보내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에서 필사자 증여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낙원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sequence of Paradise Sons on your planet was wholly deranged by the appearance of your Creator Son on his terminal bestowal nineteen hundred years ago.

20:4.5 (227.3) Urantia may yet be visited by an Avonal commissioned to incarnate on a magisterial mission, but regarding the future appearance of Paradise Son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the time or manner of such visitations,” for a Michael-bestowal world becomes the individual and personal ward of a Master Son and, as such, is wholly subject to his own plans and rulings. And with your world, this is further complicated by Michael’s promise to return. Regardless of th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Urantian sojourn of Michael of Nebadon, one thing is certainly authentic — his promise to come back to your world. In view of this prospect, only time can reveal the future order of the visitations of the Paradise Sons of God on Urantia.

5. BESTOW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20:5.1 (227.4) The Eternal Son is the eternal Word of God. The Eternal Son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first” absolute and infinite thought of his eternal Father. When a personal duplication or divine extension of this Original Son starts on a bestowal mission of mortal incarnation, it becomes literally true that the divine “Word is made flesh,” and that the Word thus dwells among the lowly beings of animal origin.

20:5.2 (227.5) On Urantia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that the purpose of a Son’s bestowal is, in some manner, to influence the attitud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your enlightenment should indicate that this is not true. The bestowals of the Avonal and the Michael Sons are a necessary part of the experiential process designed to make these Sons safe and sympathetic magistrates and rulers of the peoples and planets of time and space. The career of sevenfold bestowal is the supreme goal of all Paradise Creator Sons. And all Magisterial Sons are motivated by this same spirit of service which so abundantly characterizes the primary Creator Sons and the Eternal Son of Paradise.

20:5.3 (227.6) Some order of Paradise Son must be bestowed upon each mortal-inhabited world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 minds of all normal human beings on that sphere, for the Adjusters do not come to all bona fide human beings until the Spirit of Truth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the sending of the Spirit of Truth is dependent upon the return to universe headquarters of a Paradise Son who has successfully executed a mission of mortal bestowal upon an evolving world.

인간거주 행성의 긴 역사 행로 동안에, 여러 섭리시대 판결이 일어날 것이며, 집행관 사명이 한 번 이상 발생하겠지만, 증여 **아들**은 대개 그 구체에서 한 번만 봉사할 것이다. 각 인간거주 세계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필사자 생애를 살게 되는, 한 명의 증여 **아들**을 필요로 할 뿐이다. **창조주 아들**이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하기로 선택한 행성, 즉 각 지방우주마다 하나씩의 행성을 제외한 모든 필사-인간거주 세계마다,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머지않아, 증여 사명을 띤 **집행관 아들**을 맞이하게 돼있다.

증여 **아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네바돈** 역사에서 **유란시아**에 왜 그토록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너희 행성이 지방우주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성이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너희 **창조주 아들**의 최종적이고 승리에 넘친 증여 경기장, 즉 **네바돈**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최고 주권을 **미가엘**이 쟁취한 경기장이었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에서, 특히 자신의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동역자 **아들들**, 즉 **집행관 아들** 및 다른 자들의 학부{學部}에서 조언하고 지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집행관 아들들**은,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섬세한 자비와 애정 어린 동정심으로 공간 세계들에 자신을 증여한다. 그리고 이 행성 봉사는, 어떤 면에서도 **미가엘**의 필사자 증여보다 열등하지 않다.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체험하는 최종 모험의 영역으로, 유별나게 불운을 여러 번 겪어 왔던 곳을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자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 **창조주 아들**의 증여를 요구해야 할 만큼, 불행한 조건 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증여 집단에 속한 어떤 **아들**이 증여 되든지 똑같이 충분할 것인데, **집행관 아들**은 지방우주에 속한 세계에서 어떤 업무에 임하든지, 마치 그의 **낙원** 형제인 **창조주 아들**이 왔더라도 똑같은 만큼, 신성하게 효과적이고 최고로 지혜롭기 때문이다.

증여를 위해 육신화 된 기간에, 재난의 가능성이 이 **낙원 아들들**을 계속 따라다니더라도, 증여 사명을 띤 어떤 **집행관 아들** 또는 **창조주 아들**이든지 실패했다거나 태만했다는 기록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둘 다 절대 완전성에 너무나 가깝게 기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지만, 즉 삶과 피를 가진 필사 피조물과 정말로 비슷하게 되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에서는 항상 성공했다. 그들은 증여 사명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 전역에서, 그들의 증여 및 행성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 지방우주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매혹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20:5.4 (228.1) During the course of the long history of an inhabited planet, many dispensational adjudications will take place, and more than one magisterial mission may occur, but ordinarily only once will a bestowal Son serve on the sphere. It is only required that each inhabited world have one bestowal Son come to live the full mortal life from birth to death. Sooner or later, regardless of spiritual status, every mortal-inhabited world is destined to become host to a Magisterial Son on a bestowal mission except the one planet in each local universe whereon a Creator Son elects to make his mortal bestowal.

20:5.5 (228.2) Understanding more about the bestowal Sons, you discern why so much interest attaches to Urantia in the history of Nebadon. Your small and insignificant planet is of local universe concern simply because it is the mortal home world of Jesus of Nazareth. It was the scene of the final and triumphant bestowal of your Creator Son, the arena in which Michael won the supreme personal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20:5.6 (228.3) At the headquarters of his local universe a Creator Son, especially after the completion of his own mortal bestowal, spends much of his time in counseling and instructing the college of associate Sons, the Magisterial Sons and others. In love and devotion, with tender mercy and affectionate consideration, these Magisterial Sons bestow themselves upon the worlds of space. And in no way are these planetary services inferior to the mortal bestowals of the Michaels. It is true that your Creator Son selected for the realm of his final adventure in creature experience one which had had unusual misfortunes. But no planet could ever be in such a condition that it would require the bestowal of a Creator Son to effect its spiritual rehabilitation. Any Son of the bestowal group would have equally sufficed, for in all their work on the worlds of a local universe the Magisterial Sons are just as divinely effective and all wise as would have been their Paradise brother, the Creator Son.

20:5.7 (228.4) Though the possibility of disaster always attends these Paradise Sons during their bestowal incarnations, I have yet to see the record of the failure or default of either a Magisterial or a Creator Son on a mission of bestowal. Both are of origin too close to absolute perfection to fail. They indeed assume the risk, really become like the mortal creatures of flesh and blood and thereby gain the unique creature experience, but within the range of my observation they always succeed. They never fail to achieve the goal of the bestowal mission. The story of their bestowal and planetary service throughout Nebadon constitutes the most noble and fascinating chapter in the history of your local universe.

6. 필사자_중여 생애

낙원 아들이 중여 **아들**로서 필사자 육신화를 위해 준비되는, 중여 행성에서 어머니에게 잉태되는 방법은, 우주의 신비이며;이 **소나링톤** 기법의 활동을 감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생애에 대한 숭고한 지식이 너희의 혼에 스며들게 하라, 그러나 **네바돈의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쓸모없는 사색에 사고력(思考力)을 소모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 신성한 본성을 가진 존재에게는 그런 업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런 현상을 가져온 신성한 지혜가 채택한 기법에 관해 쓸데없이 짐작하는 일에는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

필사자로서_중여하는 사명에 임하는 **낙원 아들**들은,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의 남자아이로 자란다. 최상의 봉사에 임하는 이 **아들**들은 모두, 인간이 이루는 것과 똑같이, 유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돼간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태어난 인종의 필사자를 닮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이바지하는 그 영역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간구한다. 물질 관점에서, 이 인간적인_신성한 **아들**들은 한 가지 예외만 갖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세계에서 자손을 둘 수 없으며;그것은 모든 계층의 **낙원** 중여 **아들**들에게 부과된 보편적 금지사항이다.

예수가 너희 세계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했던 것처럼, 다른 **낙원 아들**들도 자신의 중여 행성에서 다양한 수용력을 갖고 노동한다. 너희는, 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행성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낙원 아들**이 중여 과정에 가져보지 못한 어떤 직업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중여 **아들**이 필사자 생애를 사는 체험을 숙달하고 나면, 자신의 내주하는 **조율사**와 완전한 조화를 성취하고 나면, 그 후 즉시, 육신 속에 있는 형제들의 혼에 영감을 주고 정신을 밝혀주도록 계획된 자신의 행성 사명 역할을 시작한다. 교사로서, 이 **아들**은 자신이 머무는 세계에 있는 필사자인종의 영적 계몽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미가엘과 **아보날**들이 자신을 필사자로서_중여하는 생애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교될 만하나, 다 똑같지는 않은데:너희의 **창조주 아들**은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봤다”고 선포했지만, **집정관 아들**들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여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봤다”고 선언한다. **집정관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태어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육신화 하지도 않으며;항상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낙원 아들**로서

6. THE MORTAL-BESTOWAL CAREERS

20:6.1 (228.5) The method whereby a Paradise Son becomes ready for mortal incarnation as a bestowal Son, becomes enmothered on the bestowal planet, is a universal mystery; and any effort to detect the working of this Sonarington technique is doomed to meet with certain failure. Let the sublime knowledge of the mortal life of Jesus of Nazareth sink into your souls, but waste no thought in useless speculation as to how this mysterious incarnation of Michael of Nebadon was effected. Let us all rejoice in the knowledge and assurance that such achievements are possible to the divine nature and waste no time on futile conjectures about the technique employed by divine wisdom to effect such phenomena.

20:6.2 (229.1) On a mortal-bestowal mission a Paradise Son is always born of woman and grows up as a male child of the realm, as Jesus did on Urantia. These Sons of supreme service all pass from infancy through youth to manhood just as does a human being. In every respect they become like the mortals of the race into which they are born. They make petitions to the Father as do the children of the realms in which they serve. From a material viewpoint, these human-divine Sons live ordinary lives with just one exception: They do not beget offspring on the worlds of their sojourn; that is a universal restriction imposed on all orders of the Paradise bestowal Sons.

20:6.3 (229.2) As Jesus worked on your world as the carpenter's son, so do other Paradise Sons labor in various capacities on their bestowal planets. You could hardly think of a vocation that has not been followed by some Paradise Son in the course of his bestowal on some one of the evolutionary planets of time.

20:6.4 (229.3) When a bestowal Son has mastered the experience of living the mortal life, when he has achieved perfection of attunement with his indwelling Adjuster, thereupon he begins that part of his planetary mission designed to illuminate the minds and to inspire the souls of his brethren in the flesh. As teachers, these Sons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spiritual enlightenment of the mortal races on the worlds of their sojourn.

20:6.5 (229.4) The mortal-bestowal careers of the Michaels and the Avonals, while comparable in most respects, are not identical in all: Never does a Magisterial Son proclaim, “Whosoever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as did your Creator Son when on Urantia and in the flesh. But a bestowed Avonal does declare, “Whos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Eternal Son of God.” The Magisterial Sons are not of immediate descent from the Universal Father, nor do they incarnate subject to the Father's will; always do they bestow themselves as Paradise Sons subject to the will of

자신을 증여한다.

증여 **아들**, 즉 **창조주** 또는 **집정관**은,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제3일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는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물렀던 **창조주 아들**이 당했던 그런 비극적 죽음을 그들이 항상 맞이한다는 관념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가 당했던 색다르고 유별나게 잔인한 체험 때문에, **유란시아**는 지방우주에 “십자가의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 그런 비인간적 취급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행성은 더 이해심 많게 그들을 영접해 왔는데, 그들은 폭력적 죽음을 맞이하는 일 없이, 자신의 필사자 생애를 끝내고, 그 시대를 종결시키며, 잠자는 생존자들을 판결하고, 새로운 섭리시대를 시작하게 한다. 증여 **아들**은 반드시 죽음을 맛봐야 하고, 그 영역의 필사자들의 실제 체험 전체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 죽음이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의 요구조건이 아니다.

증여 **아들**은, 폭력으로 죽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엄격한 응보” 또는 “신{神}의 진노”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필사자 실존이 행성에서 그렇게 살듯이, 피조물의 생애를 구성하는 모든 것 속에서 육신화하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이라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다. 증여는 행성과 우주의 필연이며, 물리적 죽음은 증여 사명 가운데 필요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필사자로서 육신화한 일이 끝나면, 봉사했던 **아보날**은 **낙원**으로 나아가고, **만유의 아버지**께 인정받으며, 배정된 지방우주로 돌아가고, **창조주 아들**에게 승인받는다. 증여 **아보날**과 **창조주 아들**은 그때, 증여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 인종들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도록, 그들의 공동 **진리의 영**을 보낸다. 지방우주에서 주권을 갖는 시대 이전에는, 이것은 두 **아들**의 공동 영인데, **창조적 영**이 이를 효력 있게 만든다. 이것은, **미가엘**의 일곱 번째 증여에 뒤따르는 지방우주 시대들의 특징을 이루는 **진리의 영광**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창조주 아들의 최종 증여가 완성되면, 그 지방우주 가운데 **아보날**이 증여된 세계들 전부에게 전에 보냈던 **진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변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권자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이 필사자로 증여됐던 행성에서 봉사하도록 **진리의 영**이 해방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 후에, **집정관**의 증여로 인해 영광을 받았던 각 세계는, 그 **집정관 아들**과 공동으로, 칠중 **창조주 아들**로부터 동일한 영 **위로자**를 받게 될 것인데, 지방우주 **주권자**가 증여 **아들**로서 몸소 육신화했다면, 그 세계도 같은 **위로자**를 받았을 것이다.

the Eternal Son of Paradise.

20:6.6 (229.5) When the bestowal Sons, Creator or Magisterial, enter the portals of death, they reappear on the third day. But you should not entertain the idea that they always meet with the tragic end encountered by the Creator Son who sojourned on your world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 extraordinary and unusually cruel experience through which Jesus of Nazareth passed has caused Urantia to become locally known as “the world of the cross.” It is not necessary that such inhuman treatment be accorded a Son of God, and the vast majority of planets have afforded them a more considerate reception, allowing them to finish their mortal careers, terminate the age, adjudicate the sleeping survivors, and inaugurate a new dispensation, without imposing a violent death. A bestowal Son must encounter death, must pass through the whole of the actual experience of mortals of the realms, but it is not a requirement of the divine plan that this death be either violent or unusual.

20:6.7 (229.6) When bestowal Sons are not put to death by violence, they voluntarily relinquish their lives and pass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not to satisfy the demands of “stern justice” or “divine wrath,” but rather to complete the bestowal, “to drink the cup” of the career of incarnation and personal experience in all that constitutes a creature's life as it is lived on the planets of mortal existence. Bestowal is a planetary and a universe necessity, and physical death is nothing more than a necessary part of a bestowal mission.

20:6.8 (230.1) When the mortal incarnation is finished, the Avonal of service proceeds to Paradise, is accepted by the Universal Father, returns to the local universe of assignment, and is acknowledged by the Creator Son. Thereupon the bestowal Avonal and the Creator Son send their conjoint Spirit of Truth to function in the hearts of the mortal races dwelling on the bestowal world. In the presovereignty ages of a local universe, this is the joint spirit of both Sons, implemented by the Creative Spirit. It differs somewhat from the Spirit of Truth which characterizes the local universe ages following a Michael's seventh bestowal.

20:6.9 (230.2) Upon the completion of a Creator Son's final bestowal the Spirit of Truth previously sent into all Avonal-bestowal worlds of that local universe changes in nature, becoming more literally the spirit of the sovereign Michael. This phenomenon takes place concurrently with the liberation of the Spirit of Truth for service on the Michael-mortal-bestowal planet. Thereafter, each world honored by a Magisterial bestowal will receive the same spirit Comforter from the sevenfold Creator Son, in association with that Magisterial Son, which it would have received had the local universe Sovereign personally incarnated

as its bestowal Son.

7. 삼위일체 교사 아들

낙원 삼위일체가,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영적인 이 **낙원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하보나**에서 **데이날**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로 기록돼 있는데, 그들의 기원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살빙톤**에서는 그들이 때로 **영적인 낙원 아들**로 명명되기도 한다.

교사 아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우주 인구조사 방송에 의하면,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의 숫자는 210억 명보다 조금 많으며, 이것은 실존하는 전체 **삼위일체 교사 아들**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는 **낙원** 예비군{豫備軍}을 제외한 것이다.

아들신분의 **데이날** 계층은, 지방우주 또는 연방우주 경영의 유기적 부서가 아니다. 그 구성원들은 창조자 또는 회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판관 또는 통치자도 아니다. 그들은 도덕적 계몽 및 영적 발전과 관계되는 만큼 그렇게 우주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보편적 교육자인데, 모든 영역의 영적 각성과 도덕적 지도에 전념한다. 그들의 사역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의 사역과 긴밀하게 상호관련돼 있고, 피조 존재들의 **낙원** 상승과 가깝게 관련돼 있다.

이 **삼위일체 아들**들은, 세 **낙원 신격**의 혼합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을 더 반사하는 것 같다. 그들이 연방우주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 반면, 지방 창조계에서는 **무한한 영**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든 우주에서 봉사의 구현{具現}이며 지혜로운 판단이다.

그들의 **낙원** 형제인 **미가엘** 및 **아보날**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중앙우주에서 어떤 예비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로 직접 파송되며, 어떤 지방우주에서 봉사하도록 거기서 위임된다. 이 진화 영역에 대한 사역에서, 그들은 **창조주 아들** 및 연합된 **집정관 아들**들의 혼합된 영적 영향을 활용하는데, **데이날**들은 그들 자체로 영적 흡인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8. 데이날의 지방우주 사역

7. THE TRINITY TEACHER SONS

20:7.1 (230.3) These highly personal and highly spiritual Paradise Son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known in Havona as the order of Daynals. In Orvonton they are of record as Trinity Teacher Sons, so named because of their parentage. On Salvington they are sometimes denominated the Paradise Spiritual Sons.

20:7.2 (230.4) In numbers the Teacher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The last universal census broadcast gave the number of these Trinity Sons functioning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s a little more than twenty-one billion, and this is exclusive of the Paradise reserves, which include more than one third of all Trinity Teacher Sons in existence.

20:7.3 (230.5) The Daynal order of sonship is not an organic part of the local or superuniverse administrations. Its members are neither creators nor retrievers, neither judges nor rulers. They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universe administration as with moral enlightenment and spiritual development. They are the universal educators, being dedicated to the spiritual awakening and moral guidance of all realms. Their ministry is intimately interrelated with that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aradise ascension of creature beings.

20:7.4 (230.6) These Sons of the Trinity partake of the combined natures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but in Havona they seem more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uperuniverses they seem to portray the nature of the Eternal Son, while in the local creations they appear to show forth the character of the Infinite Spirit. In all universes they are the embodiment of service and the discretion of wisdom.

20:7.5 (230.7) Unlike their Paradise brethren, Michaels and Avonals, Trinity Teacher Sons receive no preliminary training in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dispatched directly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and from there are commissioned for service in some local universe. In their ministry to these evolutionary realms they utilize the combined spiritual influence of a Creator Son and the associated Magisterial Sons, for the Daynals do not possess a spiritual drawing power in and of themselves.

8. LOCAL UNIVERSE MINISTRY OF THE DAYNALS

영적인 낙원 아들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독특한 존재이며, 이중 **기원**(起源)을 갖는 우주들의 운영과 매우 완전하게 관련된, 유일한 **삼위일체** 피조물이다. 그들은 영적 존재 중에서 낮은 존재들과 필사 피조물에 대한 교육 사역에 애정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과 업적에 따라서, 지역 체계들에서 수고를 시작하고, 성좌 근무를 거쳐서 지방 창조물에 대한 가장 높은 활동에 이르기까지, 안쪽을 향해 나아간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지방우주를 대표하는 영적 대사(大使)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네바돈**에 있는 **교사 아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며, 수천 명 있다. **멜기세덱** 학교에 있는 부서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 계층에 속하는 한편, 규칙적으로 구성되는 **살빙톤** 대학의 혼합된 참모진에는, 이 **아들**들을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 있다. 다양한 모론시아-훈련 세계에 많은 숫자가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필사 피조물의 영적 및 지적 증진에 전적으로 몰두하지는 않으며; 지방 창조계의 스랍 존재 및 다른 원주민에 대한 훈육에도 똑같이 관여한다. 그들의 보좌관 중에서 다수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존재들의 직급으로부터 소집됐다.

전초기지의 파수꾼 임무에서 별 연구자 임무에 이르기까지, **교사 아들**들은 종속된 모든 우주 봉사 국면에 대한 자격조건과 보증을 위해 모든 실험을 집행하고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교수진(敎授陣)을 구성한다. 그들은 행정 교육과정들로부터 **살빙톤**에 위치한 고등 **지혜 학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훈련 과정을 지휘한다. 노력하고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인정서가, 모두에게, 즉 지혜와 진리 안에서 이 모험을 완성한 상승하는 필사자 또는 열망하는 체루빔에게 수여된다.

전체 우주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충실하고 보편적으로 유능한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신세를 진다. 그들은, 모든 영 인격체를 가르치는 고양된 선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믿음직스럽고 참된 선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교사 아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끝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거의 가르쳐 줄 수 없다. **데이날** 아들신분의 방대한 활동 영역은, 너희가 지성적으로 더 진보할 때, 그리고 너희 행성의 영적 고립이 종료된 후에, **유란시아**에 더 잘 알려질 것이다.

9. 데이날의 행성 봉사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진행이, 영적 시대를 시작할 때가 됐음을 나타낼 때,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 봉사에 나

20:8.1 (231.1) The Paradise Spiritual Sons are unique Trinity-origin beings and the only Trinity creatures to be so completely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the dual-origin universes. They are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 educational ministry to mortal creatures and the lower orders of spiritual beings. They begin their labors in the local systems and, in accordance with experience and achievement, are advanced inward through the constellation service to the highest work of the local creation. Upon certification they may become spiritual ambassadors representing the local universes of their service.

20:8.2 (231.2) The exact number of Teacher Sons in Nebadon I do not know; there are many thousands of them. Many of the heads of departments in the Melchizedek schools belong to this order, while the combined staff of the regularly constituted University of Salvington embraces over one hundred thousand including these Sons. Large numbers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morontia-training worlds, but they are not wholly occupied with the spiritual and intellectual advancement of mortal creatures; they are equally concerned with the instruction of seraphic beings and other natives of the local creations. Many of their assistants are drawn from the ranks of the creature-trinitized beings.

20:8.3 (231.3) The Teacher Sons compose the faculties who administer all examinations and conduct all tests for the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all subordinate phases of universe service, from the duties of outpost sentinels to those of star students. They conduct an agelong course of training, ranging from the planetary courses up to the high College of Wisdom located on Salvington. Recognition indicative of effort and attainment is granted to all, ascending mortal or ambitious cherubim, who complete these adventures in wisdom and truth.

20:8.4 (231.4) In all universes all the Sons of God are beholden to these ever-faithful and universally efficient Trinity Teacher Sons. They are the exalted teachers of all spirit personalities, even the tried and true teachers of the Sons of God themselves. But of the endless details of th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Teacher Sons I can hardly instruct you. The vast domain of Daynals' activities will be better understood on Urantia when you are more advanced in intelligence, and after the spiritual isolation of your planet has been terminated.

9. PLANETARY SERVICE OF THE DAYNALS

20:9.1 (231.5) When the progress of events on an evolutionary world indicates that the time is ripe to initiate a spiritual age, the Trinity Teacher Sons

선다. 너희는 아들신분의 이 계층에 대해 잘 모를 것인데, **유란시아**는 영적 시대, 즉 시공우주 계몽의 1,000년 기간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구체에 머물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교사 아들**들은 지금도 너희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짐승 같은 생활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족쇄로부터, **유란시아** 거주민이 상당한 해방을 획득한 후에야, 그들은 **유란시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섭리시대들의 종결에 대해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판결하지 않으며, 산 자들을 옮기지도 않지만, 각 행성 사명 때마다 이 봉사를 수행할 **집정관 아들**을 대동한다. **교사 아들**들은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들을 깨닫는 시대가 밝아오면, 영적 시대의 시작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물질 지식 그리고 현세의 지혜라는 영적 사본(寫本)을 실체화 시킨다.

교사 아들은, 자신이 방문한 행성에 대개 행성 시간으로 1,000년 동안 머문다. 한 명의 **교사 아들**이 행성의 1,000년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의 계층에 속하는 동역자 70명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날**은 육신화 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스스로를 물질화시키며; 그러므로 방문하는 세계와의 접촉은, **찬란한 저녁 별**들, 즉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연합된 지방우주 인격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된다.

데이날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여러 번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의 사명이 끝난 후에, 그 행성은 빛과 생명의 구체라는 정착된 상태로 안내될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필사_인간거주 세계를 전체의 진화 목표다. **필사 완결성취 단계**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구체들과 많이 관련되며, 행성에서 하는 그들의 활동은 **교사 아들**들의 활동과 밀접하다. 정말로 **데이날** 아들신분의 계층 전체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창조계에서 모든 국면의 완결성취자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진화로 상승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들을 통한 필사자 진보 체제와 너무나 완전히 일체감을 갖게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우주들의 드러나지 않은 활동 중에 그들이 완결성취자들과 연합할 수도 있다고 종종 추측하게 된다. 연방우주 경영자들이, 더러는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인격체이고, 더러는 **삼위일체**에 포함된 상승한 진화 피조물임을 우리는 눈여겨본다. **삼위일체 아들**들과 완결성취자들이 시간과 관계된 체험을 지금 획득하고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데, 그 체험은 어떤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 속에서 긴밀하게 연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예비 훈련이 될지도 모른다. **우버사**의 경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연방우주들이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진화 필사자들의 생애와 그토록 오래 관련돼 온,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always volunteer for this servic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is order of sonship because Urantia has never experienced a spiritual age, a millennium of cosmic enlightenment. But the Teacher Sons even now visit your world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plans concerning their projected sojourn on your sphere. They will be due to appear on Urantia after its inhabitants have gained comparative deliverance from the shackles of animalism and from the fetters of materialism.

20:9.2 (231.6) Trinity Teacher Sons have nothing to do with terminating planetary dispensations. They neither judge the dead nor translate the living, but on each planetary mission they are accompanied by a Magisterial Son who performs these services. Teacher Sons are wholly concerned with the initiation of a spiritual age, with the dawn of the era of spiritual realities on an evolutionary planet. They make real the spiritual counterparts of material knowledge and temporal wisdom.

20:9.3 (232.1) The Teacher Sons usually remain on their visitation planets for one thousand years of planetary time. One Teacher Son presides over the planetary millennial reign and is assisted by seventy associates of his order. The Daynals do not incarnate or otherwise so materialize themselves as to be visible to mortal beings; therefore is contact with the world of visitation maintaine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associated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20:9.4 (232.2) The Daynals may return many times to an inhabited world, and following their final mission the planet will be ushered into the settled status of a sphere of light and life, the evolutionary goal of all the mortal-inhabited world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has much to do with the spheres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their planetary activities touch upon those of the Teacher Sons. Indeed, the whole order of Daynal sonship is intimately connected with all phases of finaliter activities in the evolutionary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0:9.5 (232.3) The Trinity Teacher Sons seem to be so completely identified with the regime of mortal progression through the earlier stages of evolutionary ascension that we are often led to speculate regarding their possible association with the finaliters in the undisclosed career of the future universes. We observe that the administrators of the superuniverses are part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nd part Trinity-embraced ascendant evolutionary creatures. We firmly believe that the Teacher Sons and the finaliters are now engaged in acquiring the experience of time-association which may be the preliminary training to prepare them for close association in some unrevealed future destiny. On Uversa it is our belief that, when the superuniverses are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문제에 매우 완전하게 정통해 왔던 이 **낙원 교사 아들**들이, 아마 **낙원 완결성취 단체**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10. 낙원 아들들의 연합 사역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은 누구나 그 기원과 본성이 신성하다. 각 세계를 대신하는 각 **낙원 아들**들은, 봉사하는 그 **아들**이 마치 처음이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활동한다.

낙원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영토들에 대한 **신격**의 세 인격자의 실무 본성의 신성한 표현이다. **창조주**, **집정관**, 및 **교사 아들**들은, 상승 잠재력을 갖는 사람들의 자손 및 다른 우주 전체 피조물에게 주는, 영원한 **신격**들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성의 높은 영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세계의 피조물을 돕는 역할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신성한 사역자다.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영원한 아들**의 자비와 혼합돼 있으며, **미가엘**들의 창조 능력과 사랑스런 사역 그리고 이해심 많은 주권 속에서 지방우주들에게 드러난다. **집정관 아들**들의 경우에, **영원한 아들**의 자비가 **무한한 영**의 사역과 일치되어, 심판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이 **아보날**들의 생애 속에서, 진화하는 영토들에 계시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경우에는, 세 **낙원 신격**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이 가장 높은 시_공간 가치_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있는 진리, 신성한 선택, 및 참된 영적{靈的} 아름다움으로 우주들에 제시된다.

지방우주들에서 아들신분의 이 계층들은, 공간 피조물에게 **낙원 신격**들에 대한 계시를 완수하도록 협력하는데: 지방우주의 **아버지**로서,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성품을 묘사한다. 자비의 증여 **아들**로서, **아보날**들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진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을 계시한다. 상승하는 인격체들의 참 선생으로서, **삼위일체 데이날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선생 인격을 드러낸다. 신성하게 완전한 협동 속에서, **미가엘**, **아보날**, 및 **데이날**들은, 시_공간 우주들에서 그리고 그 우주들에 대한,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실체화하고 계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낙원 섬**으로부터 미지의 공간 심연{深淵} 속으로,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신성이 끝없이 팽창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낙원 아들**들이 따를 때, 삼중 활동의 조화 속에서, 그들은 **신격**의 인격체들의 선구자로서 언제든지 활약한다.

life, these Paradise Teacher Sons, who have become so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problems of evolutionary worlds and have been so long associated with the career of evolutionary mortals, will probably be transferred to eternal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0. UNITED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20:10.1 (232:4) All the Paradise Sons of God are divine in origin and in nature. The work of each Paradise Son in behalf of each world is just as if the Son of service were the first and only Son of God.

20:10.2 (232:5) The Paradise Sons are the divine presentation of the acting natures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to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The Creator, Magisterial, and Teacher Sons are the gifts of the eternal Deities to the children of men and to all other universe creatures of ascension potential. These Sons of God are the divine ministers who are unceasingly devoted to the work of helping the creatures of time attain the high spiritual goal of eternity.

20:10.3 (232:6) In the Creator Sons th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is blended with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and is disclosed to the local universes in the creative power, loving ministry, and understanding sovereignty of the Michaels. In the Magisterial Sons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united with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is revealed to the evolutionary domains in the careers of these Avonals of judgment, service, and bestowal. In the Trinity Teacher Sons the love, mercy, and ministry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re co-ordinated on the highest time-space value-levels and are presented to the universes as living truth, divine goodness, and true spiritual beauty.

20:10.4 (233:1) In the local universes these orders of sonship collaborate to effect the revelation of the Deities of Paradise to the creatures of space: As the Father of a local universe, a Creator Son portrays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 bestowal Sons of mercy, the Avonals reveal the matchless nature of the Eternal Son of infinite compassion. As the true teachers of ascending personalities, the Trinity Daynal Sons disclose the teacher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ir divinely perfect co-operation, Michaels, Avonals, and Daynals are contributing to the actualization and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and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in and to the time-space universes. In the harmony of their triune activities these Paradise Sons of God ever function in the vanguard of the personalities of Deity as they follow the never-ending expansion of the div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from the everlasting Isle of Paradise into the unknown depths of space.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20:10.5 (233.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21편. 낙원 창조주 아들

⇨ 020

유랜시아 책

022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1편
낙원 창조주 아들

섹션

소개

1. 창조주 아들의 기원과 본성
2. 지방우주의 창조주
3. 지방우주 주권
4. 미가엘 증여
5. 으뜸 아들과 우주의 관계
6. 으뜸 미가엘의 운명

소개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지방우주를 창조하는 자이자 통치하는 자다. 이 우주 창조자 및 주권자는 이중 기원을 갖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특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각 **창조주 아들**은 서로 다르며; 각각은 본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에서 독특하며; 각각은 자신의 원천인 완전한 신격 이상{理想}이 “독생{獨生}한 아들”이다.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방대한 업무에서, 이 높은 **아들**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승인을 항상 누린다. **창조주 아들**들과 **낙원 아버지**의 관계는 감동적인 동시에 최상이다. 신(神)의 자손들을 향한 **신격** 부모의 심오한 애정은, 필사자 부모조차 자녀에게 품는 그런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사랑의 원천이다.

이 1차 **낙원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인격화 된다. 그들이 자신의 우주를 설립하려고 **낙원**으로부터 나아갈 때, **창조주 미가엘**로서 알려진다. 최고 권세 속에 정착되면, 그들은 **으뜸 미가엘**이라고 불린다. 때때로 우리는 너희의 **네바돈** 우주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계층과 본성에

PAPER 21
THE PARADISE CREATOR SON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Creator Sons
2. The Creators of Local Universes
3. Local Universe Sovereignty
4. The Michael Bestowals
5. Relation of Master Sons to the Universe
6. Destiny of the Master Michaels

INTRODUCTION

21:0.1 (234.1) THE Creator Sons are the makers and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se universe creators and sovereigns are of dual origin,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But each Creator Son is different from every other; each is unique in nature as well as in personality; each is the “only-begotten Son” of the perfect deity ideal of his origin.

21:0.2 (234.2) In the vast work of organizing, evolving, and perfecting a local universe, these high Sons always enjoy the sustaining approv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or Sons with their Paradise Father is touching and superlative. No doubt the profound affection of the Deity parents for their divine progeny is the wellspring of that beautiful and well-nigh divine love which even mortal parents bear their children.

21:0.3 (234.3) These primary Paradise Sons are personalized as Michaels. As they go forth from Paradise to found their universes, they are known as Creator Michaels. When settled in supreme authority, they are called Master Michaels. Sometimes we refer to the sovereign of your universe of Nebadon as Christ Michael. Always

속하는 첫째 **아들**을 가리키는 “**미가엘** 계층”에 어울리도록 통치한다.

원본, 즉 첫_태생 **미가엘**은, 물질 존재로서의 육신화를 전혀 체험한 적이 없지만, 중앙 창조물의 바깥쪽 구체들로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로 나아가면서, 상승하는 영적 피조물이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하는 체험을 일곱 번에 걸쳐서 다 겪었다. **미가엘** 계층은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광우주를 다 알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녀가 겪는 어떤 근본 체험도, **미가엘**들이 몸소 참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들은 사실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너희의 본성에도 역시 참여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본성의 의미한다.

원본 **미가엘**은, 1차 **낙원 아들**들이 만물의 중심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주재하는 우두머리다. 영원한 **섬**에서, 부모의 면전{面前}에 모여서, 온갖 우주의 통합과 안정의 진보에 관해 심의하는 **창조주 아들** 15만 명의 특별 비밀 회의에 대해 우주에 방송하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우버사**에 기록했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즉 일곱 번 중여한 **아들**들 중에서 선택된 어떤 집단이었다.

1. 창조주 아들의 기원과 본성

영원한 아들 안에 있는 영적 절대 관념작용이 무르익어서, **만유의 아버지**의 충만한 절대 인격 개념과 마주칠 때, 그런 창조적 합동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달성될 때, 그렇게 절대로 동일한 영과 그렇게 무한히 하나 된 인격 개념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 거기서, 무한한 **신격**들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인격 또는 특권 가운데 어느 것에도 아무 손실됨 없이, 새로운 원본 **창조주 아들**이 다_성장된 존재로서 번개같이 나타는데, 그 **아들**은 완전한 이상{理想}과 강력한 관념의 독생{獨生} **아들**이며, 이런 합동이, 능력과 완전성에 속하는 이 새로운 창조자 인격체를 산출한다.

각 **창조주 아들**은, 온갖 우주의 항상_실존하는 **창조주**들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두 정신의 원래 개념이 완전하게 합동함으로 말미암은, 독생 및 독생_가능한 자손이다. 그러한 또 다른 **아들**은 결코 생길 수 없는데, 이는 이 **미가엘 아들**이 실존하도록 결합을 이뤘던 그 신성한 창조적 잠재력에서, 전체 영원성 전반에 걸쳐서, 언젠가 발견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그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실체의 전체 가능성을 갖는, 그 모든 특색의 총 국면을 모두, 각 **창조주 아들**이 무조건적이고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각 **창조주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결합된 신격 개념들의 절대치다.

and forever do they reign after the “order of Michael,” that being the designation of the first Son of their order and nature.

21:0.4 (234.4) The original or first-born Michael has never experienced incarnation as a material being, but seven times he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spiritual creature ascent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advancing from the outer spheres to the innermost circuit of the central creation. The order of Michael knows the grand universe from one end to the other; there is no essential experience of any of the children of time and space in which the Michaels have not personally participated; they are in fact partakers not only of the divine nature but also of your nature, meaning all nature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21:0.5 (234.5) The original Michael is the presiding head of the primary Paradise Sons when they assemble for conference at the center of all things. Not long since on Uversa we recorded a universal broadcast of a conclave extraordinary on the eternal Isle of one hundred fifty thousand Creator Sons assembled in the parental presence and engaged in deliberations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 of the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was a selected group of Sovereign Michaels, sevenfold bestowal Sons.

1. ORIGIN AND NATURE OF CREATOR SONS

21:1.1 (234.6) When the fullness of absolute spiritual ideation in the Eternal Son encounters the fullness of absolute personality concept in the Universal Father, when such a creative union is finally and fully attained, when such absolute identity of spirit and such infinite oneness of personality concept occur, then, right then and there, without the loss of anything of personality or prerogative by either of the infinite Deities, there flashes into full-fledged being a new and original Creator Son, the only-begotten Son of the perfect ideal and the powerful idea whose union produces this new creator personality of power and perfection.

21:1.2 (235.1) Each Creator Son is the only-begotten and only-begettable offspring of the perfect union of the original concepts of the two infinite and eternal and perfect minds of the ever-existent Creato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 never can be another such Son because each Creator Son is the unqualified, finished, and final expression and embodiment of all of every phase of every feature of every possibility of every divine reality that could, throughout all eternity, ever be found in, expressed by, or evolved from, those divine creative potentials which united to bring this Michael Son into existence. Each Creator Son is the absolute of the united deity concepts which constitute his divine origin.

이 **창조주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은, 원칙적으로, 두 **낙원** 부모의 속성들에서 똑같이 도출된다.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을 충만하게 나누지만, 우주들에서 **미가엘**의 역할이 실제로 해결해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주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은 것처럼 보이며; 다른 이들은 **아들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에서 경영의 방향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인 그 **아들이**,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의 본성과 성품을 더 닮았음을 암시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것처럼 보이는 **낙원 미가엘**들이, 어떤 우주들을 관장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도 암시적 비평이 아니며;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다.

나는 실존하는 **창조주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70만 명 이상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현재, 정확하게 70만 명의 **합동 항존자**가 있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우리가 관찰하기로, 현재 우주 시대의 규정된 계획은, 한 명의 **합동 항존자**가 **삼위일체**의 상담하는 대사로서 각 지방우주에 머물게 돼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계속 증가하는 **창조주 아들**들의 숫자가, **합동 항존자**의 고정된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70만 명 이외의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

2. 지방우주의 창조주

1차 계열의 **낙원 아들**들은 각각, 영토의 설계자, 창조자, 건축가, 및 경영자인데, 이 영토는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창조 단위인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다. **창조주 아들**은 미래에 자신의 시공우주 활동을 펼칠 공간 위치를 선택하도록 허락 받았지만, 그 우주를 물리적으로 조직화하기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활동하려고 입안한 그 연방우주에 자리 잡은 다양한 창조계에서, 자신보다 오래된 형제들의 수고를 연구하기에 몰두하는 긴 관찰 기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미가엘 아들**은 **낙원**을 관찰하고 **하보나** 훈련을 받는, 길고 독특한 체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창조주 아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형을 시작하기 위해, 즉 자신이 직접 조직할 지방우주의 지배자가 되려고--곧 실질적 **하나님**이 되려고--**낙원**에서 출발할 때, 자신이 **제3 근원 및 중심**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해야 함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무한한 영**은, 만물의 중심

21:1.3 (235.2) The divine natures of these Creator Sons are, in principle, derived equally from the attributes of both Paradise parents. All partake of the fullnes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of the creative prerogatives of the Eternal Son, but as we observe the practical outworking of the Michael functions in the universes, we discern apparent differences. Some Creator Sons appear to be more like God the Father; others more like God the Son. For example: The trend of administra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suggests that its Creator and ruling Son is one whose nature and character more resemble that of the Eternal Mother Son. It should be further stated that some universes are presided over by Paradise Michaels who appear equally to resemble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And these observations are in no sense implied criticisms; they are simply a recording of fact.

21:1.4 (235.3) I do not know the exact number of Creator Sons in existence, but I have good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re are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 Now, we know that there are exactly seven hundred thousand Unions of Days and no more are being created. We also observe that the ordained plan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seem to indicate that one Union of Days is to be stationed in each local universe as the counseling ambassador of the Trinity. We note further that th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Creator Sons already exceeds the stationary number of the Unions of Days. But concerning the destiny of the Michaels beyond seven hundred thousand, we have never been informed.

2. THE CREATORS OF LOCAL UNIVERSES

21:2.1 (235.4) The Paradise Sons of the primary order are the designers, creators, builders, and administrators of their respective domains,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basic creative units of the seven evolutionary superuniverses. A Creator Son is permitted to choose the space site of his future cosmic activity, but before he may begin even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his universe, he must spend a long period of observation devoted to the study of the efforts of his older brothers in various creations located in the superuniverse of his projected action. And prior to all this, the Michael Son will have completed his long and unique experience of Paradise observation and Havona training.

21:2.2 (235.5) When a Creator Son departs from Paradise to embark upon the adventure of universe making, to become the head — virtually the God —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own organization, then, for the first time, he finds himself in intimate contact with, and in many

에 **아버지** 및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각 **창조주 아들**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우미로서 작용하게 돼있다. 그리하여 각 **창조주 아들**은, **신성한 사역자**, 즉 새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기로 예정된 존재인,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을 대동한다.

이 경우에 **미가엘 아들**이 출발하면, 그의 창조자 특권은 **낙원 근원 및 중심**들로부터 영구히 해방되는데, 오직 이 **근원 및 중심**들의 선재{先在}에 내재된 특정한 제한조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다른 선행하는 권능과 현존들에 대해서만 종속된다.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 외에는, 지방우주 **아버지**로서 전능한 창조자 특권을 갖는다:

1. **에너지** 물질은 **무한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크든 작든, 새로운 어떤 형태든지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 물질의 새로운 어떤 변형이든지 시도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은 **무한한 영**의 승인과 실용적 협동을 획득해야 한다.

2. **피조물 설계 및 유형**은 **영원한 아들**의 통제를 받는다. **창조주 아들**은 어떤 새로운 존재 유형이든지, 어떤 새로운 피조물 설계든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이신 영원한 원본 아들**의 허락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3.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께서 설계하고 증여하신다.

정신 유형 및 원형은, 생명체가 되기 전의 존재 요소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인격적이든지 아니든지) 생명체를 조성하기 위해 이것들이 연합한 후에, **제3 근원 및 중심**이 정신을 부여하는데, 그는 **낙원 창조주**들의 수준보다 낮은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정신 사역의 보편적 근원이다.

영의 설계 및 유형에 대한 통제는, 설계와 유형이 형태화 되는 수준에 의존한다. 결국,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를 받거나, **삼위일체** 인격체들--**아버지, 아들, 및 영**--의 **삼위일체** 이전{以前} 영 재능에 따라서 통제된다.

그런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우주의 공간 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면,우주가 물질화 되고 총체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면,**무한한 영**의 보완적 딸과 합동해서 효과적이고 협동적인 작업을 형성하면--그 다음에,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은, 자신의 지방 우주 자녀로 이뤄진 수많은 무리가 기원되도록 고안된 접촉을 시작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낙원**의 **무한한 영**이 집중하는 **창조적 영**은 본질이 바뀌게 되는데,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인격있는 자질을 띠게 된다.

respects dependent upo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Infinite Spirit, though abiding with the Father and the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is destined to function as the actual and effective helper of each Creator Son. Therefore is each Creator Son accompanied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that being who is destined to become the Divine Minister, the Mother Spirit of the new local universe.

21:2.3 (236.1) The departure of a Michael Son on this occasion forever liberates his creator prerogatives from the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subject only to certain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e-existence of these Sources and Centers and to certain other antecedent powers and presences. Among these limitations to the otherwise all-powerful creator prerogatives of a local universe Father are the following:

21:2.4 (236.2) 1. *Energy-matter* is dominated by the Infinite Spirit. Before any new forms of things, great or small, may be created, before any new transformations of energy-matter may be attempted, a Creator Son must secure the consent and working co-operation of the Infinite Spirit.

21:2.5 (236.3) 2. *Creature designs and types* are controlled by the Eternal Son. Before a Creator Son may engage in the creation of any new type of being, any new design of creature, he must secure the consent of the Eternal and Original Mother Son.

21:2.6 (236.4) 3. *Personality* is designed and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21:2.7 (236.5) The types and patterns of *mind* are determined by the precreature factors of being. After these have been associated to constitute a creature (personal or otherwise), mind is the endowmen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source of mind ministry to all beings below the level of Paradise Creators.

21:2.8 (236.6) The control of *spirit* designs and types depends on the level of their manifestation. In the last analysis, spiritual design is controlled by the Trinity or by the pre-Trinity spirit endowments of the Trinity personalities — Father, Son, and Spirit.

21:2.9 (236.7) When such a perfect and divine Son has taken possession of the space site of his chosen universe; when the initial problems of universe materialization and of gross equilibrium have been resolved; when he has formed an effective and co-operative working union with the complemental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 then do this Universe Son and this Universe Spirit initiate that liaison which is designed to give origin to the innumerable hosts of their local universe children. In connection with this event the Creative Spirit focalization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becomes changed in nature, taking on the

모든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낙원** 부모를 신성하게 닮음에도, 누구든지 서로 똑같이 닮지는 않으며; 각자는 **본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독자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 대한 생명 계획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자이므로, 바로 이 다양성이, 거기서 창조되거나 나중에 진화될 수 있는, **미가엘**로부터_파생된 살아있는 실존의 각 형태와 국면마다, 그들의 영토 역시 다양하게 될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방우주에서 출생한 피조물 계층은 매우 다채롭다. 어떤 두 지역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중_기원의 원주민 존재들이 경영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어떤 연방우주든지 그 안에서는, 그들의 내재적 속성 가운데 절반이 매우 비슷한데, 확실적인 **창조적 영**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며; 다른 절반은 서로 다른데, 다양한 **창조주 아들**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은, 순전히 **창조적 영** 안에서만 기원되는 피조물이나, 중앙우주 또는 연방우주들에서 출생하고 이입{移入}된 존재들의 특징이 아니다.

미가엘 아들이 자기 우주를 비울 때, 그 정부는 첫_태생의 고유 존재, 즉 지방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빛나는 새벽별**의 지시를 받는다. **합동 항존자**의 충고와 조언은 그런 때에 매우 귀중하다. 자리를 비운 이 기간에, **창조주 아들**은 필사{必死}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영적 현존의 전면통제권을, 연합된 **어머니 영**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양육하는 배려와 영적 보살핌을, 그런 진화 영토 가운데 가장 먼 부분들까지 확장하면서, 항상 지방우주 본부에 머문다.

확립된 물질 창조물이 부드럽게 운행되는 데에는, **창조주 아들**이 자기 지방우주에 친히 현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아들**들은 **낙원**으로 여행할 수 있고, 그들의 우주는 여전히 공간을 통해 회전한다. 그들은 시간세계의 자녀로서 육신화 하기 위해, 자신의 일련의 능력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영역은 각각의 중심 주위를 여전히 회전한다. 어떤 물질 조직이든지, **낙원**의 절대_인력 지배 또는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에 내재된 시공우주 전면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지방우주 주권

낙원 삼위일체의 동의를 얻고, 관련된 연방우주를 감독하는 **으뜸 영**의 확인을 받아서, **창조주 아들**은 한 우주 범위를 부여받는다. 그런 조치가, 물리적 소유권, 즉 시공우주 임차권{賃借權}을 조성한다. 그러나 스스로_제한한 이 초기의 통치자 신분 단계로부터, 스스로_얻은 체험적 최고 주권의 높이까지 **미가엘 아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주

personal qualities of the Mother Spirit of a local universe.

21:2.10 (236.8) Notwithstanding that all Creator Sons are divinely like their Paradise parents, none exactly resembles another; each is unique, diverse, exclusive, and original in *nature* as well as in personality. And since they are the architects and makers of the life plans of their respective realms, this very diversity insures that their domains will also be diverse in every form and phase of Michael-derived living existence which may be created or subsequently evolved therein. Hence the orders of creature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are quite varied. No two are administered or inhabited by dual-origin native beings who are in all respects identical. Within any superuniverse, one half of their inherent attributes are quite alike, being derived from the uniform Creative Spirits; the other half vary, being derived from the diversified Creator Sons. But such diversity does not characterize those creatures of sole origin in the Creative Spirit nor those imported beings who are native to the central or superuniverses.

21:2.11 (237.1) When a Michael Son is absent from his universe, its government is directed by the first-born native being,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local universe chief executive. The advice and counsel of the Union of Days is invaluable at such times. During these absences a Creator Son is able to invest the associated Mother Spirit with the overcontrol of his spiritual presence on the inhabited worlds and in the hearts of his mortal children. And the Mother Spirit of a local universe remains always at its headquarters, extending her fostering care and spiritual ministry to the uttermost parts of such an evolutionary domain.

21:2.12 (237.2) The personal presence of a Creator Son in his local universe is not necessary to the smooth running of an established material creation. Such Sons may journey to Paradise, and still their universes swing on through space. They may lay down their lines of power to incarnate as the children of time; still their realms whirl on about their respective centers. No material organization is independent of the absolute-gravity grasp of Paradise or of the cosmic overcontrol inherent in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3. LOCAL UNIVERSE SOVEREIGNTY

21:3.1 (237.3) A Creator Son is given the range of a universe by the consen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Such action constitutes title of physical possession, a cosmic leasehold. But the elevation of a Michael Son from this initial and self-limited stage of

를 창조하는 업무에서, 그리고 자신을 증여하는 육신화에서, 몸소 체험한 결과로 이뤄진다. 그는, 증여로_획득하는 주권을 성취하기 전에는,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

창조주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직접 창조한 것에 대해 온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피조물로서 증여하는 일들을 마치기 전에, 수고해서 얻지 않은 최고 주권(主權)을 행사하면, 그의 지방우주에 주둔하는 **낙원** 인격체들이 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전체 창조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창조자신분이라는 사실이 완전한 주권을 암시하지만, **미가엘**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획득하기를, 그리하여 지방우주 경영에 배속된 **낙원** 인격체들 전체의 충분한 협동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않은 어떤 **미가엘**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자유의지를 지닌 **아들**이다.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주권은, 여섯 또는 일곱 단계의 체험 형태를 통과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초기의 대리 주권 --연합된 **창조적 영**이 인격적 특성을 획득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잠정적 권세.

2. 공동 대리 주권 --**우주 어머니 영**이 인격을 성취한 후에 **낙원** 쌍으로서 공동으로 하는 통치.

3. 증가하는 대리 주권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일곱 번 증여하는 기간에 증진하는 그의 권세.

4. 최고 주권 --일곱째 증여를 완성함으로써 얻는 안정된 권세. **네바돈**에서는,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가 완성된 날부터 최고 주권이 시작됐다. 이 단계는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보다 조금 넘게 존재해 왔다.

5. 증가하는 최고 주권 --피조 영토들 가운데 대다수가 빛과 생명에 정착됨으로써 증가하는 증진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방우주에서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해당된다.

6. 삼자일체 주권 --지방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 이후에 행사된다.

7. 계시되지 않은 주권 --미래 우주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입안된 지방우주의 초기 대리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주 미가엘**은 일곱 번의 피조물 증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rulership to the experiential supremacy of self-earned sovereignty comes as a result of his own personal experiences in the work of universe creation and incarnated bestowal. Until the achievement of bestowal-earned sovereignty, he rules as vicerent of the Universal Father.

21:3.2 (237.4) A Creator Son could assert full sovereignty over his personal creation at any time, but he wisely chooses not to. If, prior to passing through the creature bestowals, he assumed an unearned supreme sovereignty, the Paradise personalities resident in his local universe would withdraw. But this has never happened throughout all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1:3.3 (237.5) The fact of creatorship implies the fullness of sovereignty, but the Michaels choose to experientially *earn* it, thereby retaining the full co-operation of all Paradise personalities attached to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We know of no Michael who ever did otherwise; but they all could, they are truly freewill Sons.

21:3.4 (237.6) The sovereignty of a Creator Son in a local universe passes through six, perhaps seven, stages of experiential manifestation. These appear in the following order:

21:3.5 (237.7) 1. Initial vicegerent sovereignty — the solitary provisional authority exercised by a Creator Son before the acquirement of personal qualities by the associated Creative Spirit.

21:3.6 (237.8) 2. Conjoint vicegerent sovereignty — the joint rule of the Paradise pair subsequent to the personality achievement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21:3.7 (238.1) 3. Augmenting vicegerent sovereignty — the advancing authority of a Creator Son during the period of his seven creature bestowals.

21:3.8 (238.2) 4. Supreme sovereignty — the settled authorit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seventh bestowal. In Nebadon, supreme sovereignty dates from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It has existed just slightly over nineteen hundred years of your planetary time.

21:3.9 (238.3) 5. Augmenting supreme sovereignty — the advanced relationship growing out of the settling of a majority of the creature domains in light and life. This stage pertains to the unachieved future of your local universe.

21:3.10 (238.4) 6. Trinitarian sovereignty — exercised subsequent to the settling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21:3.11 (238.5) 7. Unrevealed sovereignty — the unknown relationships of a future universe age.

21:3.12 (238.6) In accepting the initial vicegerent sovereignty of a projected local universe, a Creator Michael takes an oath to the Trinity not to

공인을 받을 때까지, 최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미가엘 아들**이 수고해서 얻지 않은 그런 주권을 임의로 주장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무의미 할 것이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을 증여하기 이전{以前} 시대에도, 자신의 영토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의가 없으면, 거의 최상으로 자신의 영토를 통치한다. 주권이 한 번도 도전 받지 않았다면, 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도저히 걸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역 없는 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이 증여됨으로써 행사되는 주권은, 반역 있는 우주의 경우보다 크지 못하지만, 첫째 경우에는 주권 한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둘째 경우에는 뚜렷하다.

창조주 아들의 권세 또는 경영이 언제든지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창조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갱생시키기로 영원히 서약한다. 그런 **아들**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피조물 또는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로 말미암아 교란되고 시달림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들”, 즉 지방우주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원된 자들이 **창조주 아들**을 교란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추측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덕행은 인격체의 자유의사에 달렸으며; 정의는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증여 경력이 완성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은 스스로 부과한 어떤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주권으로 통치하지만, 증여 봉사를 마친 후에는 여러 피조물 형태 또는 비슷한 모습으로 실제 체험을 한 덕분에 다스린다. **창조주**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 일곱 번 머물렀을 때, 즉 증여 경력이 끝난 후에, 우주 권세 속에 최상으로 정착하며; **으뜸 아들**, 즉 주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가 된다.

지방우주의 최고 주권을 획득하는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체험 단계가 포함된다:

1. 관련된 수준에서 피조물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육신화 증여 기법을 통해서 일곱 피조물 존재 수준을 체험함으로써 통과함.

2. **낙원 신격**의 일곱 가지 뜻이 **일곱 으뜸 영**으로서 의인화{擬人化}된 것 같이, 각 국면을 체험하는 데 전념함.

3. 일곱 피조물 수준에서 각각의 체험을 거치면서, 동시에 **낙원 신격**의 뜻에 일곱 가지로 헌신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행함.

4. 각 피조물 수준에서, 피조물 생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낙원 신격**에게 그리고 전

assume supreme sovereignty until the seven creature bestowals have been completed and certified by the superuniverse rulers. But if a Michael Son could not, at will, assert such unearned sovereignty, there would be no meaning in taking an oath not to do so.

21:3.13 (238.7) Even in the prebestowal ages a Creator Son rules his domain well-nigh supremely when there is no dissent in any of its parts. Limited rulership would hardly be manifest if sovereignty were never challenged. The sovereignty exercised by a prebestowal Creator Son in a universe without rebellion is no greater than in a universe with rebellion; but in the first instance sovereignty limitations are not apparent; in the second, they are.

21:3.14 (238.8) If ever the authority or administration of a Creator Son is challenged, attacked, or jeopardized, he is eternally pledged to uphold, protect, defend, and if necessary retrieve his personal creation. Such Sons can be troubled or harassed only by the creatures of their own making or by higher beings of their own choosing. It might be inferred that “higher beings,” those of origin on levels above a local universe, would be unlikely to trouble a Creator Son, and this is true. But they could if they chose to. Virtue is volitional with personality; righteousness is not automatic in freewill creatures.

21:3.15 (238.9)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bestowal career a Creator Son rules with certain self-imposed limitations of sovereignty, but subsequent to his finished bestowal service he rules by virtue of his actual experience in the form and likeness of his manifold creatures. When a Creator has seven times sojourned among his creatures, when the bestowal career is finished, then is he supremely settled in universe authority; he has become a Master Son, a sovereign and supreme ruler.

21:3.16 (238.10) The technique of obtaining supreme sovereignty over a local universe involves the following seven experiential steps:

21:3.17 (238.11) 1. Experientially to penetrate seven creature levels of being through the technique of incarnated bestowal in the very likeness of the creatures on the level concerned.

21:3.18 (238.12) 2. To make an experiential consecration to each phase of the sevenfold will of Paradise Deity as it is personified in the Seven Master Spirits.

21:3.19 (239.1) 3. To traverse each of the seven experiences on the creature levels simultaneously with the execution of one of the seven consecrations to the will of Paradise Deity.

21:3.20 (239.2) 4. On each creature level, experientially to portray the acme of creature life to

체 우주 지성체에게, 체험을 통해서 보여드림.

5. 각 피조물 수준마다, **신격**의 일곱 가지 뜻 가운데 한 국면을, 그 증여 수준과 온 우주에게, 체험함으로써 드러냄.

6. 일곱 가지 피조물 경험과, **신격**의 본성 및 의지를 드러내는 데 헌신하는 일곱 가지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통합시킴.

7. **지존하신 분**과 새롭고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함. 이 **창조주**가 피조물로서 겪은 전체 체험이 끼친 영향이, 연방우주에서 **지존자 하나님**의 실체와 **전능한 지존자**의 시·공간 주권{主權}을 증대시키고, **낙원 미가엘**의 지방우주 최고 주권을 실현한다.

주권에 관한 문제가 지방우주에서 해결되는 동안, **창조주 아들**은 통치하기에 자신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낙원 신격**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일곱 가지 입장을 묘사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탁월성을 유한자가 이해하게 됨과 피조물이 인정하게 됨은, **창조주 아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체험을 겪을 때 그가 부딪치는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낙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본성과 인정 많으신 권세를 실제로 계시하는 분인데,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및 **영**과 연합하여, 전체 우주 영역 도처에서 모든 권능, 인격체, 및 정부의 보편적 지배자이다.

4. 미가엘 증여

증여하는 **창조주 아들**에는 일곱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영역의 피조물에게 스스로를 증여했던 횟수에 따라 그렇게 분류된다. 그들은 첫 체험부터 다섯 번의 추가적 진보 증여 구체들을 거쳐서, **창조주**이자_피조물로서 체험하는 일곱째 및 최종 사건에 도달하기까지를 범위로 한다.

아보날 증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하지만, **창조주 아들**의 일곱 증여는 일곱 피조 존재 수준에서 나타남을 포함하고, **신격**의 뜻과 본성의 일곱 가지 주요 표현을 드러내는 데 관한 것이다. 모든 **창조주 아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한 완결된 최고 관할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창조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일곱 번 내어주는 체험을 한다.

이 일곱 번의 증여가 구역과 우주마다 다르더라도, 반드시 필사자로서_증여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증여의 경우에, **창조주 아들**은 어떤

Paradise Deity and to all universe intelligences.

21:3.21 (239.3) 5. On each creature level, experientially to reveal one phase of the sevenfold will of Deity to the bestowal level and to all the universe.

21:3.22 (239.4) 6. Experientially to unify the sevenfold creature experience with the sevenfold experience of consecration to the revelation of the nature and will of Deity.

21:3.23 (239.5) 7. To achieve new and higher relationship with the Supreme Being. The repercussion of the totality of this Creator-creature experience augments the superuniverse reality of God the Supreme and the time-space sovereignty of the Almighty Supreme and factualizes the supreme local universe sovereignty of a Paradise Michael.

21:3.24 (239.6) In settling the question of sovereignty in a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is not only demonstrating his own fitness to rule but is also revealing the nature and portraying the sevenfold attitude of the Paradise Deities. The finite understanding and creature appreciation of the Father's primacy is concerned in the adventure of a Creator Son when he condescends to take upon himself the form and experiences of his creatures. These primary Paradise Sons are the real revealers of the Father's loving nature and beneficent authority, the same Father who, in association with the Son and the Spirit, is the universal head of all power, personality, and government throughout all the universal realms.

4. THE MICHAEL BESTOWALS

21:4.1 (239.7) There are seven groups of bestowal Creator Sons, and they are so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times they have bestowed themselves upon the creatures of their realms. They range from the initial experience up through five additional spheres of progressive bestowal until they attain the seventh and final episode of creature-Creator experience.

21:4.2 (239.8) Avonal bestowals are always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the seven bestowals of a Creator Son involve his appearing on seven creature levels of being and pertain to the revelation of the seven primary expressions of the will and nature of Deity. Without exception, all Creator Sons pass through this seven times giving of themselves to their created children before they assume settled and supreme jurisdiction over the universes of their own creation.

21:4.3 (239.9) Though these seven bestowals vary in the different sectors and universes, they always embrace the mortal-bestowal adventure. In the

인간거주 세계에서 높은 인간 종족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출현하는데, 대개 동물에서 기원된 사람의 물리적 상태를 올려주기 위해 그 전에 이 입(移入)됐던 **아담** 혈통을 가장 많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인종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출현한다. 너희에게 **베들레헴** 아기에 관한 기록이 있듯이, **낙원 미가엘**은 증여 **아들**로서의 일곱 차례 생애 가운데 오직 한 번,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 번, 진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는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증여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증여에 대한 **아버지**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이고, 다음 우주 봉사를 준비하는 지침을 받기 위해서다. 일곱째이자 마지막의 증여가 있는 후에,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권세와 관할권을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너희 행성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신성한 **아들**은, 자신의 증여 경력 가운데 여섯 국면을 완성한 **낙원 창조주 아들**이었으며, 따라서 그가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생명을 붙잡고 있던 의식을 포기했을 때, “완료됐다”고--정말로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했다고 기록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죽음이 증여 경력을 완성시켰으며; 그것은 **낙원 창조주 아들**의 신성시되는 맹세를 완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이 체험이 획득됐을 때, 그런 **아들**은 최고 우주 주권자가 되며; 더 이상 **아버지** 대리인으로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통치한다. 명시된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 일곱 번 증여한 이 **아들**은, 자신의 거주지인 그 우주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높다. 그의 지방우주에 관한 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승리하고 왕좌에 앉은 이 **으뜸 아들**에게 이관됐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증여 경력을 완성한 후에, 별도의 계층, 즉 칠중 **으뜸 아들**로서 분류된다. **으뜸 아들**들은 실물에서는 **창조주 아들**과 똑 같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간주되는 그런 독특한 증여 체험을 겪었다. **창조주**가 자신을 낮춰서 증여를 이행할 때, 실제적이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정말로, 증여 **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창조주**이지만, 자신의 본성에 피조물 체험을 추가했는데, 이 체험이 그를 **창조주 아들**의 신성한 수준으로부터 영원히 옮겨서, 우주를 통치하고 그 우주에 속한 세계들을 경영하는 권한을 충만하게 획득한 존재인 **으뜸 아들**의 체험적 경지로 올려준다. 그런 존재들은, 신성한 기원으로 보증되고 완전하게 된 피조 체험에서 도출된 모든 것을 구현한다. 바로 그 **하나님**들도, 자신의 우주 영토를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 있고 적당하다고 간주되기 전에, 합당한 체험을 통과해야 하는 마당에, 초라하게 기원했다고 해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왜 탄식해야 한

final bestowal a Creator Son appears as a member of one of the higher mortal races on some inhabited world, usually as a member of that racial group which contains the largest hereditary legacy of the Adamic stock which has previously been imported to upstep the physical status of the animal-origin peoples. Only once in his sevenfold career as a bestowal Son is a Paradise Michael born of woman as you have the record of the babe of Bethlehem. Only once does he live and die as a member of the lowest order of evolutionary will creatures.

21:4.4 (239.10) After each of his bestowals a Creator Son proceeds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there to gain the Father’s acceptance of the bestowal and to receive instruction preparatory to the next episode of universe service. Following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a Creator Son receives from the Universal Father supreme authority and jurisdiction over his universe.

21:4.5 (240.1) It is of record that the divine Son of last appearance on your planet was a Paradise Creator Son who had completed six phases of his bestowal career; consequently, when he gave up the conscious grasp of the incarnated life on Urantia, he could, and did, truly say, “It is finished” — it was literally finished. His death on Urantia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it was the last step in fulfilling the sacred oath of a Paradise Creator Son. And when this experience has been acquired, such Sons are supreme universe sovereigns; no longer do they rule as vicegerents of the Father but in their own right and name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ith certain stated exceptions these sevenfold bestowal Sons are unqualifiedly supreme in the universes of their abode. Concerning his local universe,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was relegated to this triumphant and enthroned Master Son.

21:4.6 (240.2) Creator Sons, subsequent to the completion of their bestowal careers, are reckoned as a separate order, sevenfold Master Sons. In person the Master Sons are identical with the Creator Sons, but they have undergone such a unique bestowal experience that they are commonly regarded as a different order. When a Creator deigns to effect a bestowal, a real and permanent change is destined to take place. True, the bestowal Son is still and none the less a Creator, but he has added to his nature the experience of a creature, which forever removes him from the divine level of a Creator Son and elevates him to the experiential plane of a Master Son, one who has fully earned the right to rule a universe and administer its worlds. Such beings embody all that can be secured from divine parentage and embrace everything to be derived from perfected-creature experience. Why should man bemoan his lowly origin and enforced evolutionary career when the very Gods must

단 말인가!

5. 으뜸 아들과 우주의 관계

으뜸 미가엘의 권능은, 체험을 통해서 **낙원 삼위일체**와 연합됨으로써 획득됐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데, 그런 권세에 복종하는, 바로 그런 피조물로 사는 실제 체험에서 획득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칠중 **창조주 아들**의 주권의 본질은 최상급인데, 그 이유는:

1. **낙원 신격**의 칠중 관점을 포함하고,
2. 시_공간 피조물의 칠중 입장을 구체화시키며,
3. **낙원** 입장과 피조물 관점을 완전하게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체험적 주권은, **지존하신 분** 안에서 최고점에 달하는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칠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_완성될 **지존하신 분**의 미래 주권과 비슷한테, 그것이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시_공간 한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원 삼위일체**의 능력과 권세 중에서 가장 충만하게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방우주의 최고 주권{主權}을 성취하고 나면, 현 우주 시대 동안에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피조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미가엘 아들**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생기게 할 능력을 **으뜸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이미 확립된, 그리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생명 합성 업무와 어떤 면에서도 충돌되지 않으며; 우주 진화의 이 광대한 계획표는 중단되거나 축소됨 없이 계속된다. **으뜸 아들**이 최고 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미 계획되고 창조된 것,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자들이 나중에 산출할 것을, 육성{育成}하고 경영하는 일에 몸소 헌신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다양한 존재가 거의 끝없이 진화될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원형{原型}이나 유형의 지성 피조물도 **으뜸 아들**로부터 직접 기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방우주든지 안정된 경영의 첫 걸음이고 시작이다.

일곱 번 증여한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갖도록 승진{昇進}되는 것은, 긴 세월의 불확실성과 상대적 혼란의 종말이 시작된다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후에, 언젠가 영성화 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분해될 것이며; 언젠가 시공우

pass through an equivalent experience before they are accounted experientially worthy and competent finally and fully to rule over their universe domains!

5. RELATION OF MASTER SONS TO THE UNIVERSE

21:5.1 (240.3) The power of a Master Michael is unlimited because derived from experienced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Trinity, is unquestioned because derived from actual experience as the very creatures subject to such authority. The nature of the sovereignty of a sevenfold Creator Son is supreme because it:

21:5.2 (240.4) 1. Embraces the sevenfold viewpoint of Paradise Deity.

21:5.3 (240.5) 2. Embodies a sevenfold attitude of time-space creatures.

21:5.4 (240.6) 3. Perfectly synthesizes Paradise attitude and creature viewpoint.

21:5.5 (240.7) This experiential sovereignty is thus all-inclusive of th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culminating in the Supreme Being. And the personal sovereignty of a sevenfold Son is like the future sovereignty of the sometime-to-be-completed Supreme Being, embracing as it does the fullest possible content of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Paradise Trinity manifestable within the time-space limits concerned.

21:5.6 (240.8) With the achievement of supreme local universe sovereignty, there passes from a Michael Son the power and opportunity to create entirely new types of creature beings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a Master Son's loss of power to originate entirely new orders of beings in no way interferes with the work of life elaboration already established and in process of unfoldment; this vast program of universe evolution goes on without interruption or curtailment. The acquirement of supreme sovereignty by a Master Son implies the responsibility of personal devotion to the fostering and the administering of that which has already been designed and created, and of that which will subsequently be produced by those who have been thus designed and created. In time there may develop an almost endless evolution of diverse beings, but no entirely new pattern or type of intelligent creature will henceforth take direct origin from a Master Son. This is the first step, the beginning, of a settled administration in any local universe.

21:5.7 (241.1) The elevation of a sevenfold bestowal Son to the unquestion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mean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gelong uncertainty and relative confusion. Subsequent to this event, that which cannot be

주 실체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 파괴될 것이다. 비축돼 있던 끊임없는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인내가, 그 영역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충성과 헌신을 얻고자 노력하는 동안 다 소모됐을 때, 응보와 정의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복구시킬 수 없는 그것을, 응보가 결국 멸절(滅絶)시킬 것이다.

으뜸 미가엘들은, 일단 주권 통치자로 세워진 후에는,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가장 높다. 그들의 통치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시공우주보다 선재{先在}한 특정한 세력과 인격체들에 내재된 것들 때문이다. 그 외에, 이 **으뜸 아들**들은 각자의 우주에서 권세와 책임과 경영 능력에서 가장 높으며, **창조주** 및 **하나님**으로서, 실질적으로 만물 중에서 가장 높다. 주어진 우주의 기능발휘에 관해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통찰력은 있을 수 없다.

한 지방우주에서 확정된 주권자신분으로 승진된 뒤에, **낙원 미가엘**은 자신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며, 그 영역의 필요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통치한다. **으뜸 아들**은 인간거주 행성들에 대한 영적 판결과 진화 조정 명령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특히 자신이 생명체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을 최종적으로 증여한 영역, 즉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그 행성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으뜸 아들들은 자신을 증여했던 세계, 즉 자신이 몸소 머물렀던 세계뿐 아니라 어떤 **집정관 아들**이 자신을 증여했던 모든 세계와도 완전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자신의 영적 현존, 즉 **진리의 영**이 이런 접촉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이 **진리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수 있다. 또한 이 **으뜸 아들**들은 만물의 중심에서,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과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시간 영역에 있는 행성 생명체의 하위 인종들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호의적인 유효범위를 지니고 있다.

6. 으뜸 미가엘의 운명

지방우주의 칠중 **으뜸 주권자**의 본성이나 운명에 대해 감히 논의할 수 있는 결정적 권세를 아무도 가질 수 없으나,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각 **낙원 미가엘**이, 자신이 기원된 이중 신격 개념의 **절대**치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실제 국면들을 구체화한다. **미가엘**들은 전체 무한성과 관

sometime spiritualized will eventually be disorganized; that which cannot be sometime coordinated with cosmic reality will eventually be destroyed. When the provisions of endless mercy and nameless patience have been exhausted in an effort to win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will creatures of the realms,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prevail. That which mercy cannot rehabilitate justice will eventually annihilate.

21:5.8 (241.2) The Master Michaels are supreme in their own local universes when once they have been installed as sovereign rulers. The few limitations upon their rule are those inherent in the cosmic pre-existence of certain forces and personalities. Otherwise these Master Sons are supreme in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administrative power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they are as Creators and Gods, supreme in virtually all things. There is no penetration beyond their wisdom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a given universe.

21:5.9 (241.3) After his elevation to settled sovereignty in a local universe a Paradise Michael is in full control of all other Sons of God functioning in his domain, and he may freely rule in accordance with his concept of the needs of his realms. A Master Son may at will vary the order of the spiritual adjudication and evolutionary adjustment of the inhabited planets. And such Sons do make and carry out the plans of their own choosing in all matters of special planetary need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orlds of their creature sojourn and still more concerning the realm of terminal bestowal, the planet of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21:6.10 (241.4) The Master Sons seem to be in perfect communication with their bestowal worlds, not only the worlds of their personal sojourn but all worlds whereon a Magisterial Son has bestowed himself. This contact is maintained by their own spiritual presence,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y are able to “pour out upon all flesh.” These Master Sons also maintain an unbroken connection with the Eternal Mother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y possess a sympathetic reach which extends from the Universal Father on high to the lowly races of planetary life in the realms of time.

6. DESTINY OF THE MASTER MICHAELS

21:6.1 (241.5) No one may with finality of authority presume to discuss either the natures or the destinies of the sevenfold Master Sovereigns of the local universes; nevertheless, we all speculate much regarding these matters. We are taught, and we believe, that each Paradise Michael is the *absolute* of the dual deity concepts of his origin; thus he embodies actual phases of the infinity of

런할 때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기원과 관련된 무한성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 시대에 그들의 업무를 관찰할 때, 유한을 넘는 어떤 행위도 발견하지 못하며; 추측된 초월 유한 수용력이 완비돼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피조물로 증여하는 경력을 완성하고 최고 우주 주권으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 활동 수용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동반해서 유한을 넘어서는 봉사 능력이 출현할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이런 연고로 인해, 우리는 그런 **으뜸 아들**들이 그때부터 새로운 유형의 피조 존재를 산출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 제한은 초월 유한 잠재성이 해방됨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하게 된다.

발견되지 않은 이 창조자 능력이, 현재 우주 시대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먼 미래에 언젠가, 현재 집결되고 있는 외부 공간 우주들에서, 칠중 **으뜸 아들**과 일곱째 단계의 **창조적 영** 사이의 접촉이 유한절대 수준의 봉사에 도달하고, 궁극적 우주의 의미를 갖는 초월 수준들에서 새로운 사물과 의미와 가치들의 출현{出現}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체험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존자**라는 **신격**이 실재화 되고 있음과 똑같이,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심오한 본성 안에 묶여 있는 **낙원** 신성 잠재성을 몸소 실현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최상급 신성으로부터 궁극적 유한절대성을 거쳐서 영원한 신격 완결성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을, 모든 우주 인격체를 위해 언제나 밝게 비춰주면서, **미가엘**들이 글자 그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돼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Michaels must be partial in relation to total infinity, but they are probably absolute in relation to that part of infinity concerned in their origin. But as we observe their work in the present universe age, we detect no action that is more than finite; any conjectured superfinite capacities must be self-contained and as yet unrevealed.

21:6.2 (242.1) The completion of the creature-bestowal careers and the elevation to supreme universe sovereignty must signify the completed liberation of a Michael's finite-action capacities accompanied by the appearance of capacity for more-than-finite service. For in this connection we note that such Master Sons are then restricted in the production of new types of creature beings, a restriction undoubtedly made necessary by the liberation of their superfinite potentialities.

21:6.3 (242.2)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se undisclosed creator powers will remain self-contained throughout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sometime in the far-distant future, in the now mobil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we believe that the liaison between a sevenfold Master Son and a seventh-stage Creative Spirit may attain to absonite levels of service attended by the appearance of new things, meanings, and values on transcendental levels of ultimate universe significance.

21:6.4 (242.3) Just as the Deity of the Supreme is actualizing by virtue of experiential service, so are the Creator Sons achieving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Paradise-divinity potentials bound up in their unfathomable natures. When on Urantia, Christ Michael onc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we believe that in eternity the Michaels are literally destined to b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ever blazing the path for all universe personalities as it leads from supreme divinity through ultimate absonity to eternal deity finality.

21:6.5 (242.4)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22편. 삼위일체 처럼 된 하나님의 아들

⇨ 021

유랜시아 책

023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2편

삼위일체 처럼 된 하나님의 아들

섹션

소개

1.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
2. 강력한 사자
3. 권세 높은 이
4.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5.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
6. 삼위일체처럼 된 대사
7. 삼자일체되는 기법
8.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9. 천상의 수호자
10. 높은 아들 보좌관

소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세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과 상승하는 아들신분 계층 외에, **삼위일체처럼 된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진 셋째 집단이 있다. 아들신분에 속하는 삼자일체된 계층은,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인격체 기원에 따라서, 3가지 1차 계열로 나뉘어 있다. 이 1차 계열은 다음과 같다:

1. **신격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2.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
3.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기원에 상관없이, 모든 **삼위일체처럼 된 하나님의 아들**은, 기원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나중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 체험으로서, 삼자일체됨을 공통으로 체험했다. **신격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은 본 문서에서 계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나머지 두 집단, 특히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국한해서 제시될 것이다.

PAPER 22

THE TRINITIZED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inity-Embraced Sons
2. The Mighty Messengers
3. Those High in Authority
4.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5. The Trinitized Custodians
6. The Trinitized Ambassadors
7. Technique of Trinitization
8. The Creature-Trinitized Sons
9. The Celestial Guardians
10. High Son Assistants

INTRODUCTION

22:0.1 (243.1) THERE are three groups of beings who are called Sons of God. In addition to descending and ascending orders of sonship there is a third group known as the Trinitized Sons of God. The trinitized order of sonship is subdivided into three primary di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s of its many types of personalities, revealed and unrevealed. These primary divisions are:

- 22:0.2 (243.2) 1. Deity-trinitized Sons.
- 22:0.3 (243.3) 2. Trinity-embraced Sons.
- 22:0.4 (243.4) 3. Creature-trinitized Sons.

22:0.5 (243.5) Irrespective of origin all Trinitized Sons of God have in common the experience of trinitization, either as a part of their origin or as an experience of Trinity embrace subsequently attained. The Deity-trinitized Sons are unrevealed in these narratives; therefore will this presentation be confined to a portrayal of the remaining two groups, more particularly the Trinity-embraced

sons of God.

1.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모든 아들은 원래 이중 또는 단일 기원(起源)에 해당하지만,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후에는 **삼위일체**를 위한 봉사와 임무에 영원히 헌신한다. 이 단체는, 계시된 바와 같이, 또한 연방우주 봉사를 위해 조직된 바와 같이, 일곱 계층의 인격체를 포함한다:

1. 강력한 사자.
2. 권세 높은 이.
3.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4.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
5. 삼위일체처럼된 대사.
6. 천상의 수호자.
7. 높은 아들 보좌관.

이 일곱 집단의 인격체는, 기원, 본성, 및 기능에 따라서 더 세분되는데, 3개의 주요 분야: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로 분류된다.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들은--곧 강력한 사자들, 권세 높은 이들,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모두 **완결성취** 단체와 **낙원**을 달성한, **조율사**와 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다. 그러나 그들은 **완결성취**자가 아니며, **삼위일체** 포용을 이룩한 후에는 그들의 이름이 **완결성취**자 출석부에서 제거된다. 이 계층의 새 아들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영원 항존**자들의 지시를 받는 **하보나** 회로들의 회로 본부 행성들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근무하는 데 배정된다.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은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과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하보나**를 통과하고 **낙원**에 도달한, 어떤 진화 스라빔 및 전환된 중도(中道)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빛과 생명**의 섬으로 상승한, **영**과 융합된 필사자와,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로부터 모집된다.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후에, 그리고 **하보나**에서 짧은 훈련을 받은 후에,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배정(配定)된다.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 천상의 수호자 및 그들의 협조자, 즉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두 번 삼자일체된 인격체라는 독특한 집단이다. 그들은,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 또는 **완결성취** 단체에서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완성된 상

1. THE TRINITY-EMBRACED SONS

22:1.1 (243.6) All Trinity-embraced sons are originally of dual or single origin, but subsequent to the Trinity embrace they are forever devoted to Trinity service and assignment. This corps, as revealed and as organized for superuniverse service, embraces seven orders of personalities:

- 22:1.2 (243.7) 1. Mighty Messengers.
- 22:1.3 (243.8) 2. Those High in Authority.
- 22:1.4 (243.9) 3.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22:1.5 (243.10) 4. Trinitized Custodians.
- 22:1.6 (243.11) 5. Trinitized Ambassadors.
- 22:1.7 (243.12) 6. Celestial Guardians.
- 22:1.8 (243.13) 7. High Son Assistants.

22:1.9 (243.14) These seven groups of personalities are further classified, according to origin, nature, and function, into three major divisions: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nd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22:1.10 (244.1)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 the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are all Adjuster-fused ascendant mortals who have attained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But they are not finaliters; when they have been Trinity embraced, their names are removed from the finaliter roll call. The new sons of this order pass through specific courses of training, for comparatively short periods, on the circuit headquarters planets of the Havona circui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Eternals of Days. Thereafter they are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22:1.11 (244.2)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embrace the Trinitized Custodians and the Trinitized Ambassadors. They are recruited from certain of the evolutionary seraphim and translated midway creatures who have traversed Havona and have attained Paradise, as well as from certain of the Spirit-fused and the Son-fused mortals who have likewise ascended to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Subsequent to their embrace by the Paradise Trinity and after a brief training in Havona,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re assigned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22:1.12 (244.3)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ir co-ordinates, the High Son Assistants, comprise a unique group of twice-trinitized personalities. They are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f Paradise-Havona

승 필사자들 중에서,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이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일곱 으뜸 영의 최상급 행정관**들과 근무한 후에,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아래서 근무한 후에, **낙원 삼위일체**에게 다시 삼자일체(포용)되고, 그 다음에는 **천상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높은 아들 보좌관**으로서,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위임된다.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더 이상 훈련 없이 연방우주 봉사에 바로 배정된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우리 동역자들은--**곤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은-고정된 숫자이지만,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은 변함없이 증가한다.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의 일곱 계층 전체는, 일곱 연방우주 정부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위임되고, 각 연방우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똑같으며; 하나도 잃은 적이 없다.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존재들은 타락에 빠진 적이 없으며;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도 연방우주 정부를 경멸했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달성 아들들**과 **선택 아들들**은 **오르본톤** 봉사에서 전혀 넘어진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때로 심판에 과오(過誤)를 범하고 그리하여 잠깐 혼돈을 야기한다.

일곱 계층 전체는, **태고 항존자들**의 지시 하에 자체 통치 집단으로서 거의 대부분 작용한다. 그들이 이바지하는 범위는 멀리까지 이르며;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배정된 연방우주를 떠나지 않지만, 그들의 삼자일체된 동역자들은 광우주를 범위로 삼는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영원한 **낙원 섬**에 이르기까지 여행한다. 그들은 어떤 연방우주에서든지 활동할 수 있지만, 원래 임명된 연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아들들은, 외견상 일곱 연방우주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돼 온듯하며; 이 배정은 분명히 현재 우주 시대 동안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들은 적이 없다.

2. 강력한 사자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 중에서 상승자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반역을 시험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충성한 것이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입증된, 완전하게 된 계층의 필사자이며; 우주에 충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그들이 **낙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어느 때에는, 천배들의 불충성 앞에서도 견고히 버티고 충성했으며, 더러는 그런 불충한 지도자들의

personalities or of perfected ascendant mortals who have long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Some of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after service with the Supreme Executiv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after serving under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retrinitized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then commissioned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s Celestial Guardians and as High Son Assistants.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re assigned directly to the superuniverse service without further training.

22.1.13 (244.4) Our Trinity-origin associates —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 are of stationary numbers, but the Trinity-embraced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All seven orders of Trinity-embraced sons are commissioned as members of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 governments, and the number in the service of each superuniverse is exactly the same; not one has ever been lost. Trinity-embraced beings have never gone astray; they may stumble temporarily, but not one has ever been adjudged in contempt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 Sons of Attainment and the Sons of Selection have never faltered in the service of Orvonton, but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have sometimes erred in judgment and thereby caused transient confusion.

22.1.14 (244.5) Under the dire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ll seven orders function very much as self-governing groups. Their scope of service is far-flung;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do not leave the superuniverse of assignment, but their trinitized associates range the grand universe, journey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o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y may function in any of the superuniverses, but they do so always as members of the supergovernment of original designation.

22.1.15 (244.6) Apparently the Trinity-embraced sons have been permanent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certainly this assignment is for the dur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we have never been informed that it is to be eternal.

2. THE MIGHTY MESSENGERS

22.2.1 (245.1) Mighty Messengers belong to the ascendant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They are a class of perfected mortals who have been rebellion tested or otherwise equally proved as to their personal loyalty; all have passed through some definite test of universe allegiance. At some time in their Paradise ascent they stood firm and loyal in the face of the disloyalty of their superiors, and some did actively and loyally function in the

직분을 대신하여 능동적으로 충성스럽게 활동했다.

상승하는 이 필사자들은,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개인 기록을 소지하고, 시간세계의 순례자{巡禮者} 무리와 함께 **하보나**를 거쳐서 지나가고, **낙원**에 도달하며, 거기서 졸업하고, **완결성취 단계**에 소집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밀스런 포용으로 삼자일체되고, 그 후에 일곱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에서 **태고 항존자**들과 연합하도록 위임된다.

반역에 직면해서 충성스럽게 활동하는, 반란 체험을 겪은 상승 필사자마다, 결국 연방우주에서 근무하는 **강력한 사자**가 되게 돼있다. 실책이나 악 또는 죄의 그런 격변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어떤 상승 피조물이든지 마찬가지이며;우주가 위기에 처할 때 반역을 예방하도록, 또는 높은 유형의 충성심을 초래하도록 고안된 행위는, 실제 반역에 직면했을 경우의 충성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선임{先任}인 **강력한 사자**들은, 비교적 초기에 **낙원**에 도착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바로 그 필사자 가운데서 선택됐는데, 대부분은 **그랜한다** 시대에 **하보나**를 거쳐서 지나갔다. 그러나 **강력한 사자**가 처음으로 삼자일체됨은, 후보자 단체가 일곱 연방우주 각각으로부터 대표자를 다 받아들일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낙원**에서 자격을 갖추는 이 계층 중에서 마지막 집단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상승한 순례자를 포함했다.

강력한 사자는 70만 명 단위로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데, 각 연방우주마다 10만 명씩 배정된다. 거의 1조{兆}에 달하는 **강력한 사자**가 **우버사**에 위임돼 있으며,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서 근무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다고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강력한 사자**이며, 내 필사 체험의 동무였던 동역자 역시 큰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쪽으로 **하보나**를 향해 긴 기간 여러 번 오랫동안 분리돼 있었음에도 동일한 70만 명 집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긴밀하고 사랑스런 연합체 속에서 **바이스저링톤**을 통해 지나가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유란시아인**이 흥미로워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위임됐고, **오르본톤**의 **우버사**에 함께 배정됐으며, 두 **사자**{使者}의 봉사를 요구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리 지어 종종 파송된다.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모든 아들과 공통으로, 연방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에 배정된다. 그들은 연방우주 만사성 봉사를 통해서

places of such unfaithful leaders.

22:2.2 (245.2) With such personal records of fidelity and devotion, these ascending mortals pass on through Havona with the stream of the pilgrims of time, attain Paradise, graduate therefrom, and a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reupon they are trinitized in the secret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subsequently are commissioned to become associated with the Ancients of Day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22:2.3 (245.3) Every ascendant mortal of insurrectionary experience who functions loyally in the face of rebellion is eventually destined to become a Mighty Messenger of the superuniverse service. Likewise is any ascendant creature who effectively prevents such upheavals of error, evil, or sin; for action designed to prevent rebellion or to effect higher types of loyalty in a universe crisis is regarded as of even greater value than loyalty in the face of actual rebellion.

22:2.4 (245.4) The senior Mighty Messengers were chosen from those ascendant mortals of time and space who were among the earlier Paradise arrivals, many having traversed Havona in the times of Grandfanda. But the first trinitizing of Mighty Messengers was not effected until the candidate corps contained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 last group of this order to qualify on Paradise embraced ascendant pilgrims from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22:2.5 (245.5) Mighty Messenger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classes of seven hundred thousand, one hundred thousand for assignment to each superuniverse. Almost one trillion Mighty Messengers are commissioned on Uversa, and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number serving in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exactly the same.

22:2.6 (245.6) I am a Mighty Messenger, and it may interest Urantians to know that the companion and associate of my mortal experience was also triumphant in the great test, and that, though we were many times and for long periods separated in the agelong inward ascent to Havona, we were embraced in the same seven-hundred-thousand group, and that we spent our time passing through Vicegerington in close and loving association. We were finally commissioned and together assigned to Uversa of Orvonton, and we are often dispatched in company for the execution of assignments requiring the services of two Messengers.

22:2.7 (245.7) Mighty Messengers, in common with all Trinity-embraced sons, are assigned to all phases of superuniverse activities. They maintain constant

자신의 본부와 계속 접촉한다. **강력한 사자**는 연방우주의 모든 구역에서 근무하며, 지방우주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 경우에 하는 것처럼, 심지어 개별 세계에 대해서도 자주 사명을 수행한다.

연방우주 법정에서, 판결을 위해 개인이나 행성이 심리될 때, **강력한 사자**들이 그 변호인으로 서 행동하며; 또한 그들은 대구역 직무를 지도하는 일에서 **완성 항존자**를 보좌한다. 한 집단으로서, 그들의 주요 임무는 연방우주를 관찰하는 임무다. 그들은 다양한 본부 세계에 머물고, **태고 항존자**들의 공식 입회자로서 중요한 개별 행성에 머문다. 그렇게 배정됐을 때, 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구역에서 직무를 지시하는 당국에 자문가로서 이바지하기도 한다. 그 **사자**들은 필사자의 진보 상승 요강에 속한 모든 국면에 적극 참여한다. 그들은 필사자에서 기원된 동역자들과 함께, 하강하는 **하 나님의 아들**들의 계획에 해당하는 상태 및 진보와 긴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연방정부가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강력한 사자들은 자신의 전체 상승 생애를 충분히 의식하며, 이것이 왜 그들이 시간세계의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어떤 공간 세계에 서든지 이바지하는, 그런 유익하고 동정심 많은 사역자, 즉 이해심 많은 사자일 수 있는가 하는 이유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되자마자, 우리와 자유롭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전체에 있는 모든 인종, 다시 말해서,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고 나중에는 그 **조율사**와 융합한 필사자 인종 출신이기 때문이다.

3. 권세 높은 이

권세 높은 이들, 즉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 가운데 둘째 집단은, 모두 필사자에서 기원되고 **조율사**와 융합된 존재다. 이들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상승하는 긴 생애 전반에 걸쳐서 행정상 비범한 천재성을 보인, 완성된 필사자다. 그들은, 공간세계에서 생존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유래된, 최고의 다스리는 역량을 지녔다.

삼위일체와 접촉할 때마다, 7만 명의 **권세 높은 이들**이 삼자일체된다. 비록 **네바돈** 지방우주가 비교적 젊은 창조물이다라도, 이 계층에 속하는, 최근에 삼자일체된 계층 안에 대표자들을 두고 있다. 현재 100억 명 이상의 이 유능한 경영자가 **오르본톤**에 위임돼 있다.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모든 분리된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버사**에 본부를 유지하며,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예비군은, **오르본톤**에서 그들 계층의 중앙 지시 기관으로서 행동한다.

connection with their headquarters through the superuniverse reflectivity service. Mighty Messengers serve in all sectors of a superuniverse and frequently execute missions to the local universes and even to the individual worlds, as I do on this occasion.

22:2.8 (245.8) In the superuniverse courts, Mighty Messengers act as defenders of both individuals and planets when they come up for adjudication; they also assist the Perfections of Days in the direction of the affairs of the major sectors. As a group, their chief assignment is that of superuniverse observers. They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nd on individual planets of importance as the official observers of the Ancients of Days. When so assigned, they also serve as advisers to the authorities directing the affairs of the spheres of their sojourn. The Messengers take active part in all phases of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With their associates of mortal origin they keep the supergovernments in close and personal touch with the status and progression of the plan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22:2.9 (246.1) Mighty Messengers are fully conscious of their entire ascendant careers, and that is why they are such useful and sympathetic ministers, understanding messengers, for service on any world of space and to any creature of time. As soon as you are delivered from the flesh, you will communicate freely and understandingly with us since we spring from all the races on all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at is, from those mortal races that are indwelt by, and subsequently fused with, Thought Adjusters.

3. THOSE HIGH IN AUTHORITY

22:3.1 (246.2) Those High in Authority, the second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are all Adjuster-fused beings of mortal origin. These are the perfected mortals who have exhibited superior administrative ability and have shown extraordinary executive genius throughout their long ascending careers. They are the cream of governing ability derived from the surviving mortals of space.

22:3.2 (246.3) Seventy thousand of Those High in Authority are trinitized at each Trinity liaison. Though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s a comparatively young creation, it has representatives among a recently trinitized class of this order. There are now commissioned in Orvonton more than ten billion of these skillful administrators. Like all separate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y maintain their own headquarters on Uversa, and like the other Trinity-embraced sons, their reserves on Uversa act as the central directing body of their order in Orvonton.

권세 높은 이들은 제한조건이 없는 경영자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행정관인데, 어디든지_현존하고 언제든지_능률적이다. 그들은 일급 연방우주 가운데 어디서든지, 어느 구체에서든지, 어느 인간 거주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활동 국면에서든지 이바지한다.

이 총명한 존재들은, 뛰어난 경영 지혜와 비범한 행정 솜씨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방우주 법정을 대신해서 응보의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 우주들에서 응보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부적응을 교정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의 규정된 시공우주 진보를 이루는 세계들과 구체들을 상승하는 동안에, 심판 받을 실책이 언제든지 언급되더라도, 너희가 부당하게 대우 받는 일은 도무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미 거쳤고 또 거치고 있는 생애의 모든 단계를 몸소 잘 아는, 한때 상승하던 피조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 중에서 셋째이자 마지막 집단을 구성하며;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온, 진화 인종의 전체 아들과 딸들의 기량을 뛰어넘어서 경배 드리는 역량을 발전시킨, 상승한 혼(魂)이다. 그들은 이름과 번호를 가진 진화 피조물의 납득 한계를 비교적 초월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영적 개념을 획득했으며; 따라서 그들을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라고 부른다. 더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이름과 번호 위에 있는 이들”**일 것이다.

이 계층의 아들들은 7천 명씩 무리지어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다. **오르본톤**에 위임된 이 아들이 1억 명 이상 있다고 **우버사**에 기록돼 있다.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생존하는 인종 중에서 뛰어난 영적 정신이므로, 심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어떤 영적 관점이 바람직할 때와, 상승 생애에서 체험이 판결 받게 되는 문제에 포함된 의문점에 대하여 타당하게 납득하는 데 필수적일 때, 의견을 제시하는 자격을 특별히 갖추고 있다. 그들은 **오르본톤**의 최고 배심원이다. 잘못 경영된 배심원 체계는 어떤 세계들에서 응보를 다소 우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버사** 법정에서 그리고 그 확대 법정에서, 우리는 진보된 영적 정신력을 가진 가장 높은 유형을 배심원_재판관으로 채택한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판결은 가장 높은 기능이며, 평결을 내리도록 위임받은 그들은 가장 체험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유형의 개인들 중에서 선택돼야 한다.

22.3.3 (246.4) Those High in Authority are administrators without limitation. They are the everywhere-present and always-efficient executive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serve on any sphere, on any inhabited world, and in any phase of activity in an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22.3.4 (246.5) Having superb administrative wisdom and unusual executive skill, these brilliant beings assume to present the cause of justice in behalf of the superuniverse tribunals; they foster the execution of justice and the rectification of misadaptations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refore, if you should ever be cited for errors of judgment while you are ascending the worlds and spheres of your ordained cosmic progression, it is hardly likely that you would suffer injustice since your prosecutors would be onetime ascendant creatures who are personally familiar with every step of the career you have traversed and are traversing.

4.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2.4.1 (246.6)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constitute the third and last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they are the ascendant souls who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worship beyond the skill of all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volutionary races from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They have acquired a spiritual concept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which comparatively transcends the comprehension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name or number; therefore are they denominate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More strictly translated, their name would be “Those above Name and Number.”

22.4.2 (247.1) This order of sons is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groups of seven thousand. There are of record on Uversa over one hundred million of these sons commissioned in Orvonton.

22.4.3 (247.2) Since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re the superior spiritual minds of the survival races, they are especially qualified to sit in judgment and to render opinions when a spiritual viewpoint is desirable, and when experience in the ascendant career is essential to an adequate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s involved in the problem to be adjudicated. They are the supreme jurors of Orvonton. A maladministered jury system may be more or less of a travesty of justice on some worlds, but on Uversa and its extension tribunals we employ the highest type of evolved spiritual mentality as juror-judges. Adjudication is the highest function of any government, and those who are intrusted with verdict rendering should be chosen from the highest and most noble types of

강력한 사자들, 권세 높은 이들, 및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이 되기 위한 후보자는, 선천적으로 자동으로 선정된다. **낙원**의 선택 기법은 어떤 면에서도 독단적이지 않다. 몸소 겪은 체험과 영적 가치가,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들**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런 존재들은 권세에서 동일하고 경영상 신분에서 똑같지만, 모두 개체성과 다양한 성품을 소유하며, 표준화 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상승 생애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 체험 자격조건들 외에,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들**은 **낙원 신격들**의 신성한 포용으로 삼위일체돼 왔다. 따라서 그들은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의 협조 동역자로서 활약하는데, **삼위일체** 포용이, 피조 존재의 실현되지 않은 다수의 잠재성을 미래 시간의 흐름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만 그렇다.

이 아들들 집단은 주로,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시공간 필사자의 상승 생애에 대한 봉사와 관계된다. 어떤 필사 피조물의 관점이 언제든지 의심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강력한 사자와 권세 높은 한 분**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한 분**으로 구성된 상승 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 필사자들은, **낙원**을 향해 상승하고, **삼위일체** 포용을 달성하고, 먼 훗날 시대에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근무에 배속되고, 내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젠가 어떤 진화하는 인간 거주 행성에 진리의 계시를 확장하기 위해 배정될지도 모른다.

5.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들은 **삼위일체처럼 된 선택 아들들**이다. 생존할 가치를 지닌 너희 인종 및 다른 필사자들은,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에 도달하고,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과 함께 연방우주 봉사를 하도록 정해진 자신을 언젠가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충실한 스랍 수호자들 및 동등하게 충실한 중도(中道) 동역자들 역시 똑같이 **삼위일체**의 승인을 받고, 훌륭한 인격 운명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들은,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한, 상승하는 스랍 및 전환된 중도 피조물이다. 그 후에 그들은 **낙**

the most experienced and understanding individuals.

22:4.4 (247.3)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the trinitization classes of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is inherent and automatic. The selective techniques of Paradise are not in any sense arbitrary. Personal experience and spiritual values determine the personnel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Such beings are equal in authority and uniform in administrative status, but they all possess individuality and diverse characters; they are not standardized beings. All are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ials of their ascendant careers.

22:4.5 (247.4) In addition to these experiential qualifications,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have been trinitized in the divine embrace of the Paradise Deities. Consequently they function as the co-ordinate associates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for the Trinity embrace does seem to precipitate out of the stream of future time many of the unrealized potentials of creature beings. But this is true concerning only that which pertains to the present universe age.

22:4.6 (247.5) This group of sons is chiefly, but not wholly, concerned with the services of the ascendant career of the time-space mortals. If the viewpoint of a mortal creature is ever in doubt, the question is settled by appeal to an ascendant commission consisting of a Mighty Messenger, One High in Authority,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22:4.7 (247.6) You mortals who read this message may yourselves ascend to Paradise, attain the Trinity embrace, and in remote future ages be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in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sometime be assigned to enlarge the revelation of truth to some evolving inhabited planet, even as I am now functioning on Urantia.

5. THE TRINITIZED CUSTODIANS

22:5.1 (247.7) The Trinitized Custodians ar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Not only do your races and other mortals of survival value traverse Havona, attain Paradise, and sometimes find themselves destined to superuniverse service with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but your faithful seraphic guardians and your equally faithful midway associates may also become candidates for the same Trinity recognition and superb personality destiny.

22:5.2 (248.1) Trinitized Custodians are ascendant seraphim and translated midway creatures who have passed through Havona and have attained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됐고, 태고 항존자들의 근무에 배정{配定}됐다.

상승하는 스라빔 가운데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될 후보자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았는데, 완결성 취 단체를 달성하고, 그 후에 삼자일체된 어떤 상승한 필사자와 훌륭하게 협동했기 때문이다. 필사자 생애에서 바로 나를 수호했던 스라빔이 나와 함께 승인 받았으며, 나중에 삼자일체됐고, 지금은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으로서 우버사 정부에 배속돼 있다.

그리고 중도 피조물도 마찬가지로이며; 많은 숫자가 전환되고 낙원을 성취하며, 스라빔과 더불어,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고 연방우주들에서 관리인으로 위임된다.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은 7만 명씩 무리지어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며, 각 집단에서 7분의 1이 한 연방우주에 배정된다. 현재 오르본톤 봉사에 임하는,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 관리인 숫자는 천만 명 조금 넘는다. 그들은 우버사에서, 그리고 대구역 및 소구역 본부 구체들에서 근무한다. 수고하는 동안, 그들은 수십억 명의 제2스랍 및 다른 유능한 연방우주 인격체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 관리인으로서 생애를 시작하며, 연방정부 직무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연방우주 정부의 임원이지만, 천상의 수호자들이 하는 것처럼 개인을 다루지는 않는다.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 집단 업무를 관리하고 공동 기획을 촉진시킨다. 그들은, 기록, 계획, 및 기관에 대한 관리인이며; 이행업무, 인격체 집단, 상승 기획, 모론시아 계획, 우주 설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업의 신탁인{信託人}으로서 활동한다.

6. 삼위일체처럼된 대사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 중에서 둘째 계층에 해당하고, 그 동역자인 관리인들처럼 두 가지 유형의 상승 피조물에서 모집된다.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가, 조율사, 즉 아버지와 융합하는 것은 아니며; 더러는 영 융합을 이루고, 더러는 아들 융합을 이룬다. 이런 영과 융합된 필사자와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 가운데 일부가 하보나에 도착하고 낙원에 도달한다. 이 낙원 상승자 가운데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될 후보자들이 선택되며, 때로는 7천 명 단위로 삼자일체된다. 그때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로서 연방우주에 위임된다. 거의 5억 명이 우버사에 등록돼 있다.

Subsequently they we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we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22:5.3 (248.2) The candidates for the Trinity embrace from among the ascendant seraphim are accorded this recognition because of their valiant co-operation with some ascendant mortal who attained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was subsequently trinitized. My own seraphic guardian of the mortal career went through with me, was later trinitized, and now is attached to the Uversa government as a Trinitized Custodian.

22:5.4 (248.3) And so with the midway creatures; many are translated and achieve Paradise and, along with the seraphim and for the same reasons, are Trinity embraced and commissioned as Custodians in the superuniverses.

22:5.5 (248.4) The Trinitized Custodian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groups of seventy thousand, and one seventh of each group is assigned to a superuniverse. There are now in the service of Orvonton slightly over ten million of these trusted and high Custodians. They serve on Uversa and on the major and minor headquarters spheres. In their labors they are assisted by a corps of several billion seconaphim and other able superuniverse personalities.

22:5.6 (248.5) The Trinitized Custodians start out their careers as custodians, and they continue as such in the affairs of the supergovernments. In a way, they are officers of their superuniverse governments, but they do not deal with individuals, as do the Celestial Guardians. The Trinitized Custodians administer group affairs and foster collective projects. They are the custodians of records, plans, and institutions; they act as the trustees of undertakings, personality groups, ascendant projects, morontia plans, universe projections, and innumerable other enterprises.

6. THE TRINITIZED AMBASSADORS

22:6.1 (248.6) Trinitized Ambassadors are the second order of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nd like their associates, the Custodians, are recruited from two types of ascendant creatures. Not all ascending mortals are Adjuster or Father fused; some are Spirit fused, some are Son fused. Certain of these Spirit- and Son-fused mortals reach Havona and attain Paradise. From among these Paradise ascenders, candidates are selected for the Trinity embrace, and from time to time they are trinitized in classes of seven thousand. They are then commissioned in the superuniverses as Trinitized Ambassadors of the Ancients of Days. Almost one-half billion are registered on Uversa.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 **하보나** 교사들의 충고에 따라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기 위해 선택된다. 그들은 각자의 집단 중에서 우세한 정신들을 대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과** 융합된 필사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 세계들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경영함에서 연방우주 통치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최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들과** 융합된 **대사들**은, 우리가 **아들과** 융합된 인격체 계층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 모든 목적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배정된 연방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 또는 우주에 대한, **태고 항존자들**의 밀사{密使}다. 그들은 소구역 본부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봉사를 제공하며, 어떤 연방우주의 수많은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연방정부의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의 응급{應急} 단체, 즉 예비 단체이며, 따라서 그들은 광대한 범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연방우주 직무에서 수많은 이행업무에 참여하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이 활동과 비슷한 것이 **유란시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지성인들에게 묘사할 수 없다.

7. 삼자일체되는 기법

완전한 영적 존재와, 완전하게 된 영적 존재들이 겪는 최상의 창조적 실행을--곧 삼자일체되는 행위를-- 맛보는 체험을, 나는 물질 정신에게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삼자일체되는 기법은, **바이스저링톤** 및 **솔리타링톤**의 비밀에 속하며, 독특한 이 체험을 겪은 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범한 진행사상의 본성과 의미를 인간 정신에게 성공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떤 존재라도 불가능하다.

신격들은 제외하고, 오직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과 각 완결성취자 단체의 특정 요원들만이 삼자일체됨에 참여한다. **낙원** 완전성이라는 특화된 조건 아래서, 이 뛰어난 존재들은 개념_정체성의 독특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존재, 즉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을 낳는 데 여러 번 성공한다.

삼자일체됨이라는 그런 모험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된 피조물은, 오직 한 번 그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낙원 신격들**의 경우에는 삼자일체되는 행사를 계속 실행하기에 어떤 제한도 없다. **신격**은 오직 한 면에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직 한 명의 **무한한 원본 영**, 즉 **아버지 아들**의 일치된 의지로 말미암는 무한한 행정관은 오직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22:6.2 (248.7) Trinitized Ambassadors are selected for the Trinity embrace upon the advices of their Havona teachers. They represent the superior minds of their respective groups and are, therefore, best qualified to assist the superuniverse rulers in understanding and in administering the interests of those worlds from which the Spirit-fused mortals hail. The Son-fused Ambassadors are of great assistance in our dealings with problems involving the Son-fused order of personality.

22:6.3 (248.8) Trinitized Ambassadors are the emissaries of the Ancients of Days for any and all purposes, to any and all worlds or universes within the superuniverse of their assignment. They render particular and important services on the headquarters of the minor sectors, and they perform the numberless miscellaneous assignments of a superuniverse. They are the emergency or reserve corps of the Trinitized Sons of the supergovernments, and they are therefore available for a great range of duties. They engage in thousands upon thousands of undertakings in superuniverse affairs which it is impossible to portray to human minds since there is nothing transpiring on Urantia that is in any way analogous to these activities.

7. TECHNIQUE OF TRINITIZATION

22:7.1 (249.1) I cannot fully unfold to the material mind the experience of the supreme creative performance of perfect and perfected spiritual beings — the act of trinitization. The techniques of trinitization are among the secrets of Vicegerington and Solitarington and are revealable to, and understandable by, none save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ese unique experiences. Therefore is it beyond the possibility of any being successfully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the nature and purport of this extraordinary transaction.

22:7.2 (249.2) Aside from the Deities, only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certain members of each of the finaliter corps engage in trinitization. Under specialized conditions of Paradise perfection, these superb beings may embark upon the unique adventure of concept-identity, and they are many times successful in the production of a new being, a creature-trinitized son.

22:7.3 (249.3) The glorified creatures who engage in such adventures of trinitization may participate in only one such experience, whereas with the Paradise Deities there seems to be no limit to the continued enactment of trinitization episodes. Deity seems to be limited in just one respect: There can be only one Original and Infinite Spirit, only one infinite executive of the united will of the

낙원 문화의 어떤 수준과 영적 개발을 달성하고 **조율사**와 융합된 상승한 필사 완결성취자는, 피조물 존재를 삼자일체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들에 속한다. 필사 완결성취자 일행은, **낙원**에 머물렀을 때, **하보나** 시간으로 1,000년마다 휴가를 얻는다. 그런 완결성취자들이 임무에서 면제되는 이 기간을 보내려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일곱 가지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동료 완결성취자 또는 어떤 **낙원 하보나** 인격체와 연합해서, 피조물의 삼자일체됨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두 필사 완결성취자가, **총괄우주 건축가**들 앞으로 가서, 삼자일체됨을 위해 동등한 개념을 각자 선택해 왔음을 나타낸다면, 그 **건축가**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서, 영화롭게 된 이 필사 상승자들로 하여금 휴가를 연장하고, **낙원 시민**이 삼자일체되는 구역으로 얼마동안 이동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배정된 이수양 기간이 끝날 때, 만일 그들이 그때까지 삼자일체되지 못한 어떤 선택된 원래 개념을, 영성화시키고, 이상화시키고, 실체화 시키려는 천국의 수고를 이루기로, 따로따로 그리고 공동으로 선택했다고 그들이 보고하면, 7_번 으뜸 영이 그런 비범한 이행업무를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다.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이 이 모험에 소모되며; 신실하고 단호한 옛 필사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이-- 자신의 목표를 마침내 성취하기까지, 즉 보편적 진리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개념을 실제로 존재시키기에 정말로 성공하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헌신된 이 쌍들이 항상 성공리에 만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역할에서 실책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번 실패한다. 삼자일체됨에 그렇게 실패한 후보자들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고의 실망감을 견딘 존재라고 명명되는 완결성취자들의 특별 집단에 받아들여진다. **낙원 신격**들이 삼자일체되기 위해 결합할 때에는 항상 성공하지만, 종종 피조물 한 쌍, 즉 같은 계층의 존재 가운데 두 구성원이 시도한 합동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새롭고 고유한 한 존재를 **하나님**들이 삼자일체시킬 때, 신성한 부모는 변하지 않은 신격 잠재력 속에 있지만; 고양된 피조물 존재들이 그런 창조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개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독특한 인격 변경을 겪게 된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의 두 조상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처럼 된다. 충만하고 완성된 인격의 형태화를, **지존하신 분**이 광우주에서 달성하게 될 때까지는, 인격의 어떤 영적 국면들에서 쌍으로 통합되는 이 상태가 아마 일반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Father-Son.

22:7.4 (249.4) The ascendant Adjuster-fused mortal finaliters who have attained certain levels of Paradise culture and spiritual development are among those who can essay to trinitize a creature being. Mortal-finaliter companies, when stationed on Paradise, are granted a recess every millennium of Havona time. There are seven different ways such finaliters may elect to spend this duty-free period, and one of these is, in association with some fellow finaliter or some Paradise-Havona personality, to attempt the enactment of creature trinitization.

22:7.5 (249.5) If two mortal finaliters, on going before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emonstrate that they have independently chosen an identical concept for trinitization, the Architects are empowered, on their own discretion, to promulgate mandates permitting these glorified mortal ascenders to extend their recess and to remove themselves for a time to the trinitizing sector of the Paradise Citizens. At the end of this assigned retreat, if they report that they have singly and jointly elected to make the paradisiacal effort to spiritualize, idealize, and actualize a selected and original concept which has not theretofore been trinitized, then does Master Spirit Number Seven issue orders authorizing such an extraordinary undertaking.

22:7.6 (249.6) Unbelievably long periods of time are sometimes consumed in these adventures; an age seems to pass before these faithful and determined onetime mortals — and sometimes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 finally achieve their goal, really succeed in bringing their chosen concept of universal truth into actual being. And not always do these devoted couples meet with success; many times they fail, and that through no discoverable error on their part. Candidates for trinitization who thus fail are admitted to a special group of finaliters who are designated as beings who have made the supreme effort and sustained the supreme disappointment. When the Paradise Deities unite to trinitize, they always succeed, but not so with a homogeneous pair of creatures, the attempted union of two members of the same order of being.

22:7.7 (250.1) When a new and original being is trinitized by the Gods, the divine parents are in deity potential unchanged; but when exalted creature beings enact such a creative episode, one of the contracting and participating individuals undergoes a unique personality modification. The two ancestors of a creature-trinitized son become in a certain sense spiritually as one. We believe that this status of bi-unification of certain spiritual phases of personality will probably prevail until such time as the Supreme Being shall have attained full and completed manifestation of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새로운 아들이 출현함과 동시에, 두 조상의 이 기능적인 영적 합동이 발생하며; 삼자일체되는 두 부모는 궁극적인 기능 수준에서 하나가 된다.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 존재도, 이런 놀라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은 거의 신성한 체험이다. **무한한 영**을 영존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했을 때,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그들은 즉각 하나가 됐고, 그 후로 항상 하나였다. 그리고 두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합동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한 **신격** 합동이라는 무한한 범위와 비슷하지만, 피조물 삼자일체됨이 주는 영향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으며; 체험 **신격**들의 사실화가 완성됨에 따라서 끝날 것이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의 이 부모는 자신의 우주 임무에서 하나처럼 되지만, **완결성취 단체**와 **총괄우주 건축가**들이 구성되고 출석접호 받을 때에는, 두 인격체로서 계속 알려질 것이다. 현 우주 시대 동안에, 삼자일체됨으로 결합된 모든 부모는 임무와 기능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이가 가고, 하나가 하는 것을 다른 이가 한다. 만일 부모가 쌍으로 통합되는 것이 필사(또는 다른) 완결성취자와 **낙원 하보나** 인격체를 포함하게 되면, 결합된 부모 존재는, **낙원 원주민**이나 **하보나** 원주민뿐 아니라 완결성취자들과도 함께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혼합된 합동은, 비슷한 존재들로 구성된 어떤 특별한 단체 안에서 모인다. 그리고 혼합됐든지 혼합되지 않았든지, 모든 삼자일체되는 합동에서, 부모 존재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어느 쪽도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완결성취자들과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의 삼자일체되는 합동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곱 으뜸 영**이 갖고 있으며, 그런 혼합된 접촉은 항상 성공적이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결과인 훌륭한 아들들은, **낙원**의 영원한 피조물 또는 공간에 있는 시간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남독하기에 부적당한 개념을 대표하며; 따라서 그들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외견상 미래 우주 시대에 속하고, 따라서 연방우주 또는 중앙우주 경영 어느 쪽에도 즉각적인 실제 가치가 되지 않은, 관념, 이상{理想}, 및 체험을 삼자일체된 이 운명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시간세계의 자녀와 영원성 시민이 탄생시킨 독특한 이 아들들은 모두 **바이스저링톤**에서 예비군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창조주 아들** 단체의 비밀 학부가 점유하는 구체의 어떤 특별 구역에서, 시간 개념과 영원성 실체를 연구하기에 몰두한다.

지존하신 분은 세 국면의 **신격** 실체 통합인데: **지존자 하나님**은, **낙원 삼위일체**의 어떤 유한

personality in the grand universe.

22:7.8 (250.2) Simultaneously with the appearance of a new creature-trinitized son, there occurs this functional spiritual union of the two ancestors; the two trinitizing parents become one on the ultimate functional level. No created being in the universe can fully explain this amazing phenomenon; it is a near-divine experience. When the Father and the Son united to eternalize the Infinite Spirit, upon the accomplishment of their purpose they immediately became as one and ever since have been one. And while the trinitization union of two creatures is on the order of the infinite scope of the perfect Deity un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repercussions of creature trinitization are not eternal in nature; they will terminate upon the completed factualization of the experiential Deities.

22:7.9 (250.3) While these parents of creature-trinitized sons become as one in their universe assignments, they continue to be reckoned as two personalities in the make-up and roll call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uring the current universe age, all trinitization-united parents are inseparable in assignment and function; where one goes the other goes, what one does the other does. If parental bi-unification involves a mortal (or other) finaliter and a Paradise-Havona personality, the united parental beings function neither with the Paradisers, Havoners, nor finaliters. Such mixed unions forgather in a special corps made up of similar beings. And in all trinitization unions, mixed or otherwise, the parental beings are conscious of, and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y can perform duties that neither could have previously discharged.

22:7.10 (250.4)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authority to sanction the trinitizing union of finaliters and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such mixed liaisons are always successful. The resultant magnificent creature-trinitized sons are representative of concepts unsuited to the comprehension of either the eternal creatures of Paradise or the time creatures of space; hence they become the ward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trinitized sons of destiny embody ideas, ideals, and *experience* which apparently pertain to a future universe age and are therefore of no immediate practical value to either the super- or central universe administrations. These unique sons of the children of time and the citizens of eternity are all held in reserve on Vicegerington, where they are engaged in the study of the concepts of time and the realities of eternity in a special sector of the sphere occupied by the secret colleges of the corps of the Creator Sons.

22:7.11 (251.1) The Supreme Being is the unification of three phases of Deity reality: God the Supreme,

한 측면들이 영적으로 통합된 분이며; **전능한 지존자**는, 광우주 창조주들의 권능이 통일된 분이며; **지존자 정신**은, **제3 근원 및 중심**과 그 협조자들이 개별로 **지존하신 분**의 실체에 공헌한 분이다. 중앙우주와 **낙원**의 훌륭한 피조물은,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하는 동안 **지존 신격**의 삼중{三重} 탐험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세 계층의 아들들의 생산을 초래한다:

1. **상승자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완결성취자들은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낙원**으로 상승하면서 체험함으로써 획득해 온, **전능한 지존자**의 어떤 개념 실체들을 삼자일체시키려고 시도한다.

2. **낙원과 하보나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 **낙원** 시민과 **하보나** 시민의 창조적 노력은 **궁극자**와 **영원자**에 인접한 초월 지존적 배경에서 체험함으로써 획득해 온, **지존하신 분**의 어떤 높은 영적 양상의 삼자일체됨을 가져온다.

3. **삼위일체처럼 된 운명 아들들**. 그러나 한 완결성취자와 한 **낙원 하보나** 원주민이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삼자일체시킬 때, 이 공동 노력은 **최상급 궁극 정신**의 어떤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은 창조를 초월하며; 그들은 다르게 체험적으로 달성된 적이 없는 **최상급 궁극 신격**의 실체성을 대변하며,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직분에 해당하는데, 이 **건축가**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창조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자다. 삼자일체된 운명의 아들들은, **최상급 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총괄우주 기능의 어떤 양상들을 구체화한다. 우리는 시간과 영원성의 이 공동 자녀들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계시하도록 허용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안다.

8.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본 장{章}에서 고려되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 외에도,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계층의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존재가 있다--곧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와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의 다중 접촉으로 인한 다양한 자손이 있다. 그러나 계시됐는지 계시되지 않았는지,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이 존재는 모두,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인격을 부여받는다.

상승자에서 삼자일체된 새로운 아들들, 그리고 **낙원 하보나**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이, 어리고 훈련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대개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서 긴 기간 근무하도록 파송되는데, 거기서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감독 하

the spiritual unification of certain finite aspects of the Paradise Trinity; the Almighty Supreme, the power unification of the grand universe Creators; and the Supreme Mind, the individual contribu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his coordinates to the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In their trinitization adventures the superb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Paradise are engaged in a threefold exploration of the Deity of the Supreme which results in the production of three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sons:

22:7.12 (251.2) 1. *Ascender-trinitized S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e finaliters are attempting to trinitize certain conceptual realities of the Almighty Supreme which they have experientially acquired in their ascension through time and space to Paradise.

22:7.13 (251.3) 2.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The creative efforts of the Paradise Citizens and the Havoners result in the trinitization of certain high spiritual aspects of the Supreme Being which they have experientially acquired on a supersupreme background bordering on the Ultimate and the Eternal.

22:7.14 (251.4) 3. *Trinitized Sons of Destiny*. But when a finaliter and a Paradise-Havoner together trinitize a new creature, this conjoint effort repercusses in certain phases of the Supreme-Ultimate Mind. The resulting creature-trinitized sons are supercreational; they represent actualities of Supreme-Ultimate Deity which have not been otherwise experientially attained, and which, therefore, automatically fall within the provin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custodians of those things which transcend the creational limit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trinitized sons of destiny embody certain aspects of the unrevealed master universe function of the Supreme-Ultimate. We do not know a great deal about these conjoint children of time and eternity, but we know much more than we are permitted to reveal.

8. THE CREATURE-TRINITIZED SONS

22:8.1 (251.5) In addition to the creature-trinitized sons considered in this narrative, there are numerous unrevealed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beings — the diverse progeny of the multiple liaisons of seven finaliter corps and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But all these creature-trinitized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are endowed with personality by the Universal Father.

22:8.2 (251.6) When new ascender-trinitized and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are young and untrained, they are usually dispatched for long periods of service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where they serve under the

래서 이바지한다. 그들은 그 후에 지방우주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더 훈련 받도록 채택될 수도 있다.

높고 영화롭게 된 피조물 기원을 갖는, 이렇게 채택된 아들들은, **교사 아들**들의 견습생, 즉 학생 도우미이며, 등급을 고려할 때 종종 일시적으로 이 **아들**들로 계수 된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봉사 영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부정하면서 여러 고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지방우주에 있는 **교사 아들**들은,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자신의 피후견인을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이 포용에서 그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로 떠올라서, 일곱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근무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두 번 삼자일체된 존재들로 이뤄진 이 독특한 집단의 현재 알려진 운명이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모든 아들이 **삼위일체** 포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많은 숫자는,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의, 그리고 지방 창조계 **어머니 영**의, 동료 및 대사가 된다. 더러는 영원한 **섬**에서 특별한 임무에 배정될 수 있다. 더러는 **영의 낙원** 구체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세계들에서 특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은 **하보나**의 내부 회로에서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의 공동 단체로 찾아 들어간다.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 그리고 **바이스저링톤**에 모이고 있는 그들을 제외하고,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모든 아들의 최상의 운명은, 일곱 개의 **낙원 완결성취 단체**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인 듯하다.

9. 천상의 수호자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은 7천 명 단위로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다. 완전하게 된 인간들 중에서 그리고 **낙원 하보나** 인격체들 중에서 삼자일체된 이 자손은 모두 똑같이 **신격**들에게 포용되지만, 전에 그들의 교관이었던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충고에 따라서 연방우주에 배정된다. 더 훌륭하게 이바지한 자들은 **높은 아들 보좌관**으로 위임되며; 덜 뛰어난 성과를 낸 자들은 **천상의 수호자**로 지명된다.

이 독특한 존재들이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곤 나면, 연방우주 정부에 유익한 보조원이 된다. 이들은 상승 생애의 직무를 통달하게 되는데, 몸소 상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있는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함께 근무한 결과로 그렇게 된다.

tutelage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Subsequently they may be adopted for further training in the local universes by the Trinity Teacher Sons.

22:8.3 (251.7) These adopted sons of high and glorified creature origin are the apprentices, student helpers, of the Teacher Sons, and as regards classification they are often temporarily numbered with these Sons. They may and do execute many noble assignments in self-denial in behalf of their chosen realms of service.

22:8.4 (251.8) The Teache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may nominate their creature-trinitized wards for embrace by the Paradise Trinity. Emerging from this embrace as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y enter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hat being the present known destiny of this unique group of twice-trinitized beings.

22:8.5 (252.1) Not all creature-trinitized sons are Trinity embraced; many become the associates and ambassador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of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and of the Mother Spirits of the local creations. Others may accept special assignments on the eternal Isle. Still others may enter the special services on the secret worlds of the Father and on th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Eventually many find their way into the conjoint corps of the Trinitized Sons on the inner circuit of Havona.

22:8.6 (252.2) Excepting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nd those who are forgathering on Vicegerington, the supreme destiny of all creature-trinitized sons appears to be entrance into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one of the seven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9. THE CELESTIAL GUARDIANS

22:9.1 (252.3) Creature-trinitized son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classes of seven thousand. These trinitized offspring of perfected humans and of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re all equally embraced by the Deities, but they are assigned to the superuniverses in accordance with the advice of their former instructors, the Trinity Teacher Sons. Those of more acceptable service are commissioned High Son Assistants; those of less distinguished performance are designated Celestial Guardians.

22:9.2 (252.4) When these unique beings have been Trinity embraced, they become valuable adjuncts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y are versed in the affairs of the ascendant career, not by personal ascension, but as a result of their service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on the

거의 10억에 이르는 **천상의 수호자**가 **오르본** **톤**에 위임돼 있다. 그들은 주로, 대구역 본부에 있는 **완성 향존자** 경영에 배정돼 있으며, **아들**과 **융**합된 상승 필사자 단체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천상의 수호자들은, **태고 향존자** 법정의 관리인데, 법정의 사자{使者}로서, 그리고 연방우주 정부의 다양한 법정의 소환장과 판결문을 전달하는 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태고 향존자**들의 체포 대행자이며; 연방우주 재판관들 앞에 나와야 할 존재를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우버사**에서 나가며; 연방우주에 있는 어떤 인격체든지 구류{拘留}시키라는 명령을 집행한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자신이 **우버사**에 출두할 필요가 있을 때, **영**과 **융**합된 지방우주 필사자를 대동한다.

천상의 수호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인 **높은 아들** **보좌관**들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영**과 융합하지 않고 **아들**과 융합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낙원 삼위일체**의 포용이, **삼위일체**처럼 된 **완전성 아들**들의 비-융합 상태를 보완해 준다. **삼위일체** 포용은, 포용된 아들을 달리 변화시키지 않은 채,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안에서 의인화{擬人化}된 관념에 따라서만 작용하지만, 그런 제한조건은 오직 그렇게 계획됐을 때에만 발생한다.

두-번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다재다능한 상태가 아니고, 상승한 동역자들처럼 믿음직스럽지도 않으며; 공간의 어두운 영토들로부터 영광을 향해 실제로 승진함으로써 이 집단에 속하는 나머지 아들들이 몸소 겪은, 엄청난 심오한 체험은 그들에게 없다. 상승 생애를 가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그들의 결핍을 보완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낮은 기원{起源}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항상 고맙게 여긴다. 그들이 우주 상승 중에 체험 가능한 실체들을 자신이 맛보지 못한 것을 기꺼이 알아보고 인정하려는 것은, 초월적으로 아름답고, 때로는 가장 감동적으로 애처롭다.

삼위일체처럼 된 완전성 아들들은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다른 아들들에 비해 제한적인데, 그들의 체험 수용력이 시-공간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상급 행정관** 및 **교사 아들**들과 함께 긴 훈련을 받았음에도, 체험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체험의 포화상태 때문에 미래 우주 시대에 체험을 얻도록 그들을 예비로 남아있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 모든 우주 실존에서,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은 어떤 미래 우주 시기의 체험 활동을 위해 예비 돼있다.

worlds of space.

22:9.3 (252.5) Almost one billion Celestial Guardians have been commissioned in Orvonton. They are chiefly assigned to the administrations of the Perfections of Days on the headquarters of the major sectors and are ably assisted by a corps of ascendant Son-fused mortals.

22:9.4 (252.6) The Celestial Guardians are the officers of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functioning as court messengers and as bearers of the summonses and decisions of the various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y are the apprehending agen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go forth from Uversa to bring back beings whose presence is required before the superuniverse judges; they execute the mandates for the detention of any personality in the superuniverse. They also accompany Spirit-fused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s when, for any reason, their presence is required on Uversa.

22:9.5 (252.7)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ir associates, the High Son Assistants, have never been indwelt by Adjusters. Neither are they Spirit nor Son fused. The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does, however, compensate for the nonfused status of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 Trinity embrace may act solely upon the idea which is personified in a creature-trinitized son, leaving the embraced son otherwise unchanged, but such a limitation occurs only when so planned.

22:9.6 (252.8) These twice-trinitized sons are marvelous beings, but they are neither as versatile nor dependable as their ascendant associates; they lack that tremendous and profound personal experience which the rest of the sons belonging to this group have acquired by actually climbing up to glory from the dark domains of space. We of the ascendant career love them and do all in our power to compensate their deficiencies, but they make us ever grateful for our lowly origin and our capacity for experience. Their willingness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ir deficiencies in the experiential realities of universe ascension is transcendently beautiful and sometimes most touchingly pathetic.

22:9.7 (253.1)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re limited in contrast to other Trinity-embraced sons because their experiential capacity is time-space inhibited. They are experience-deficient, despite long training with the Supreme Executives and the Teacher Sons, and if this were not the case, experiential saturation would preclude their being left in reserve for acquiring experience in a future universe age. There is simply nothing in all universal existence which can take the place of actual personal experience, and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are held in reserve for experiential function in some future universe epoch.

연방우주의 높은 법정에 속한 이 고귀한 관리들이, 그토록 동경하면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들로부터 최근에 도착한 자들조차 바라보는 것을, 나는 맨션 세계들에서 종종 봐왔는데, 진정한 체험과 실제 삶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주의 경로를 상승하는 형제, 즉 자신보다 운이 덜 좋다고 추측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고 삼자일체됨을 이룩한 자들이 정말로 부러워한다고, 누구라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장애와 한계가 있음에도, 연방우주 정부의 복잡한 경영 계획이 이행될 때,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고 항상_기꺼이 일하는 단체의 일꾼이다.

10. 높은 아들 보좌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필사 완결성취 단체**의 영화롭게 된 상승한 존재들, 그리고 그 영원한 동역자인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이 삼자일체된 아들들 중에서 다시 삼자일체된 상급{上級} 집단이다. 그들은 연방우주 봉사에 배정돼 있으며, **태고 항존자** 정부에서 높은 아들들의 개인 조력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개인 비서관으로 지명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높은 아들들의 특별 위원회 및 다른 집단 연합체들을 위한 사무관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언자, 우주 검열관, 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을 섬긴다.

만일, **천상의 수호자**들을 논하면서, 두_번_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의 제한조건과 장애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그들의 한 가지 큰 장점, 즉 그들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만드는 속성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이 존재들이 단 하나의 최상의 개념에 대한 의인화{擬人化}라는 사실에,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어떤 신성한 개념, 즉 우주의 어떤 이상{理想}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인격체인데, 전에는 전혀 상상되거나 표현되거나 삼자일체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삼위일체**에게 포용됐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격이 실존하는 관념_이상{理想}을 고려하듯이, 신성한 **삼위일체**의 바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실제로 실현한다. 특유의 그 개념이 우주들에게 계시될 수 있는 한, 이 인격체들은, 어떤 피조물이나 **창조주** 지성이든지 상상이나 표현 또는 예증{例證}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체를 포함한다. 그들은 **의인화 된 그 관념**이다.

너희는 한 가지 최상의 우주 실체 개념이 집중된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들이, 연방우주 경영을 맡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22:9.8 (253.2) On the mansion worlds I have often seen these dignified officers of the high courts of the superuniverse look so longingly and appealingly at even the recent arrival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at one could not help realizing that these possessors of nonexperiential trinitization really envied their supposedly less fortunate brethren who ascend the universal path by steps of bona fide experience and actual living. Notwithstanding their handicaps and limitations they are a wonderfully useful and ever-willing corps of workers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the complex administrative plan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0. HIGH SON ASSISTANTS

22:10.1 (253.3) The High Son Assistants are the superior group of the retrinitized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ascendant beings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of their eternal associates, the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They are assigned to the superuniverse service and function as personal aids to the high s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might fittingly be denominated private secretaries. They act, from time to time, as clerks for special commissions and other group associations of the high sons. They serve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Universal Censors,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2:10.2 (253.4) If, in discussing the Celestial Guardians, I have seemed to call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and handicaps of these twice-trinitized sons, let me now, in all fairness, call attention to their one point of great strength, the attribute which makes them almost invaluable to us. These beings owe their very existence to the fact that they are the personification of a single and supreme concept. They are the personality embodiment of some divine idea, some universal ideal, as it has never before been conceived, expressed, or trinitized. And they have subsequently been Trinity embraced; thus they show forth and actually embody the very wisdom of the divine Trinity as concerns the idea-ideal of their personality existence. As far as that particular concept is revealable to the universes, these personalities embody all of everything that any creature or Creator intelligence could possibly conceive, express, or exemplify. *They are that idea personified.*

22:10.3 (253.5) Can you not see that such living concentrations of a single supreme concept of universe reality would be of untold service to those who are i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s?

내가 **오르본톤**의 남쪽 부분에 있는 어떤 새로운 우주들 집단에 속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높은 아들 한명씩-- 배정된 여섯 위원회의 우두머리로 지명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내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의 가치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된 것은, 그런 비서를 내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정하도록, **우버사**에 있는 그들 계층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했을 때였다. 우리 개념 중에서 첫째는, **우버사**에 있는 **높은 아들 보좌관**이 대변했는데, 그는 곧 우리 집단에 배속됐다. 우리의 둘째 문제는, 3_번 연방우주에 배정된 **높은 아들 보좌관**에 내포돼 있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의 조화와 보급을 위해서, 중앙우주 교환소를 통해 이 근원에서 많은 도움을 확보했는데, 최상으로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격**에서_삼자일체된 개념인 한 인격체가 실제로 현존함으로써 제공되는 도움에 비교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우리의 셋째 문제에 관해서, **낙원** 기록은 그런 관념이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줬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광대한 개념과 엄청난 이상{理想}이 독특하고 고유하게 인격화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때때로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 비할 바 없는 빛을 비춰줄 수 있다. 내가 공간에 있는 우주들 속 멀리서 어떤 원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내가 착수하고 해결하도록 파송된,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신성한 개념으로 충만한 **높은 아들 보좌관**을, 온 좋게 내 사명에 배속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체험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 계획에서 유일한 어려움은, 어떤 연방우주도 이런 삼자일체됨에 대한 개념의 완성된 개정판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며; 우리는 이 존재들 중에서 오직 7분의 1만 획득하며; 그래서 그 관념이 삼자일체됐음을 기록이 나타냈을 때에도, 이 존재들과의 개인적 연합을 누리는 경우는 일곱 번 가운데 오직 한 번뿐이다.

우리는 **우버사**에 있는 훨씬 많은 숫자의 이 존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연방 우주 경영에서 그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간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낙원**의 거주민에게도, 그들의 그런 창조적 모험 시행에 필수적인 그 체험 실체들을 서로에게 기여한 후에 삼자일체됨을 시도하라고 권한다.

지금 우리는 약 125만 명의 **높은 아들 보좌관**을 우리 연방우주에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우버사**에서 활약하듯이, 대규모 및 소구역 양쪽에서도 근무한다. 그들은 우리가 먼 우주들에 배정될 때 종종 우리와 동행한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어떤 **아들** 또는 어떤 위원회에든지 영구히 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인 그 관념 또는 이상{理想}이 **낙원 삼위일**

22:10.4 (254.1) Not long since I was directed to head a commission of six — one of each of the high sons — assigned to the study of three problems pertaining to a group of new universes in the south parts of Orvonton. I was made acutely aware of the value of the High Son Assistants when I made requisition on the chief of their order on Uversa for temporary assignment of such secretaries to my commission. The first of our ideas was represented by a High Son Assistant on Uversa, who was forthwith attached to our group. Our second problem was embodied in a High Son Assistant assigned to superuniverse number three. We secured much help from this source through the central universe clearinghouse for the co-ordination and dissemination of essential knowledge, but nothing comparable to the assistance afforded by the actual presence of a personality who is a concept creature-trinitized in supremacy and Deity-trinitized in finality. Concerning our third problem, the records of Paradise disclosed that such an idea had never been creature trinitized.

22:10.5 (254.2) High Son Assistants are unique and original personalizations of tremendous concepts and stupendous ideals. And as such they are able to impart inexpressible illumination to our deliberations from time to time. When I am acting on some remote assignment out in the universes of space, think what it means, by way of assistance, if I am so fortunate as to have attached to my mission a High Son Assistant who is the fullness of divine concept regarding the very problem I have been sent to attack and solve; and I have repeatedly had this very experience. The only difficulty with this plan is that no superuniverse can have a complete edition of these trinitized ideas; we only get one seventh of these beings; so it is only about one time in seven that we enjoy the personal association of these beings even when the records indicate that the idea has been trinitized.

22:10.6 (254.3) We could use to great advantage much larger numbers of these beings on Uversa. Because of their value to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ions, we, in every way possible, encourage the pilgrims of space and also the residents of Paradise to attempt trinitization after they have contributed to one another those experiential realities which are essential to the enactment of such creative adventures.

22:10.7 (254.4) We now have in our superuniverse about one and a quarter million High Son Assistants, and they serve on both the major and minor sectors, even as they function on Uversa. They very often accompany us on our assignments to the remote universes. High Son Assistants are not permanently assigned to any Son or to any commission. They are in constant circulation, serving where the idea or ideal which

체의 영원한 목적을 가장 잘 진행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봉사하며, **낙원 삼위일체**의 아들이 된다.

그들은 감동적으로 사랑스러우며, 놀랄 만큼 충성스럽고, 지극히 지성적이며, --한 가지 관념에 관해-- 최고로 현명하고, 초월적으로 겸손하다. 그들이 자신의 하나의 관념 또는 이상{理想}과 관련되는 우주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반면, 다수의 기타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로부터 얻으려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대단히 애처롭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자들, 특히 **낙원 삼위일체**의 신성한 포용을 거쳐서 지나온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경영자들에게 현명하고 이해심 많게 협동하도록 연방우주의 봉사에 배정된 자들의 기원, 본성, 및 기능발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머지않은 **하보나** 목적지와 궁극적인 **낙원** 목표를 향해 상승하는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이 안쪽을 향해서 진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은 지치지 않고 노력한다.

[**오르본톤**의 계시 단체에 속한 **강력한 사자**가 진술했음]

they *are* can best further the eternal purposes of the Paradise Trinity, whose sons they have become.

22:10.8 (254.5) They are touchingly affectionate, superbly loyal, exquisitely intelligent, supremely wise — regarding a single idea — and transcendently humble. While they can impart to you the lore of the universe concerning their one idea or ideal, it is well-nigh pathetic to observe them seek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hosts of other subjects, even from the ascending mortals.

22:10.9 (254.6) And this is the narra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ing of certain of those who are called the Trinitized Sons of God, more particularly of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e divine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ho have then been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s, there to give wise and understanding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or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ir untiring efforts to facilitate the inward progress of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toward their immediate Havona destination and their eventual Paradise goal.

22:10.10 (255.1) [Narrated by a Mighty Messenger of the revelatory corps of Orvonton.]

제23편. 단독 사자

⇨ 022

유랜시아 책

024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3편
단독 사자

섹션

소개

1. 단독 사자의 본성과 기원
2. 단독 사자의 임무
3. 시간과 공간에서 단독 사자의 봉사
4. 단독 사자의 특별한 사역

소개

단독 사자{單獨 使者}들은 **공동 창조주**의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단체이며;**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 중에서 첫째이자 선임{先任} 계층이다. 그들은 단독 인격 영들을 실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홀로 작용한, **무한한 영**의 초기 창조 행위를 대표한다. **아버지**나 **아들** 가운데 아무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 영 사자들은 단 한 번의 창조 사건으로 인격화됐으며, 그들의 수는 고정돼 있다. 현재의 이 사명에서, 이 뛰어난 존재 가운데 한 명이 나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더라도, 나는 온갖 우주에 그런 인격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연방우주 관할권 안에서 당분간 활동할 때, 몇 명이 등록부에 기록됐는지 하는 것이다. 나는 최근의 **우버사** 보고서에서, **오르본톤** 경계선 안에, 그때 거의 7,690조 명의 **단독 사자**가 활동하고 있음에 주목했으며;이 숫자는 그들의 전체 숫자 가운데 7분의 1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추측한다.

1. 단독 사자의 본성과 기원

PAPER 23
THE SOLITARY MESSENGERS

SECTIONS

Introduction

1. Nature and Origin of Solitary Messengers
2. Assignments of Solitary Messengers
3. Time and Space Services of Solitary Messengers
4. Special Ministry of Solitary Messengers

INTRODUCTION

23:0.1 (256.1) SOLITARY Messengers are the personal and universal corps of the Conjoint Creator; they are the first and senior order of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represent the initial creative action of the Infinite Spirit in solitary functi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nto existence solitary personality spirits. Neither the Father nor the Son directly participated in this stupendous spiritualization.

23:0.2 (256.2) These spirit messengers were personalized in a single creative episode, and their number is stationary. Although I have one of these extraordinary beings associated with me on this present mission, I do not know how many such personalities exist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I only know, from time to time, how many are of registry-record as functioning for the time be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our superuniverse. From the last Uversa report I observe that there were almost 7,690 trillion Solitary Messengers then operating within the boundaries of Orvonton; and I conjecture that this is considerably less than one seventh of their total number.

1. NATURE AND ORIGIN OF SOLITARY

MESSENGERS

무한한 영은, **일곱 하보나 회로 영**을 창조한 직후에, 방대한 단체의 **단독 사자**를 낳았다. **낙원과 하보나 회로**들 외에,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어떤 부분도 **단독 사자**보다 선재{先在}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광우주에서 두루 활동해 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광범한 창조계에 대한 자체 계시{啓示}, 그리고 그 창조계의 직접 접촉을 위한, **무한한 영**의 신성한 기법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 사자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실존하는데, 자아성{自我性}의 시초를 모두 자각한다. 그들은 시간을 의식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물 중에서 그런 시간 의식을 지니는 첫 존재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인격화 되고 공간 속에서 영성화 되는, **무한한 영**의 첫_태생 피조물이다.

이 단독 영들은, 시간이 시작될 때, 충분히 성장하고 완전하게 갖춰진 영 존재로서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고, 개인적 차이에 근거한 계층이나 하위부서가 없다. 그들의 분류는, 그들이 때때로 배정되는 업무 유형에 전적으로 기초한다.

필사자들은,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서 거의 물질 존재로서 출발하고, **위대한 중심**들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며; 이 단독 영들은, 만물의 중앙에서 출발하고, 먼 창조계에, 심지어 가장 밖에 있는 지방우주 및 그 너머 개별{個別} 세계에 배정되기를 몹시 원한다.

그들을 **단독 사자**라고 부르지만, 고독한 영은 아닌데, 혼자서 일하기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창조물 안에 홀로 실존하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우주 지성체 중에서 그들이 사귄 수 있는 극소수의 계층과 함께 연합하는 것도 똑같이 즐긴다.

단독 사자들은 근무할 때 고립돼 있지 않으며; 자신이 머무는 영역의 모든 방층에 “귀 기울일” 수 있듯이, 모든 창조물의 풍부한 지능과 변함없이 접촉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측근 단체 구성원들, 즉 같은 연방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존재들과 상호소통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무리 중에서 다른 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일곱 으뜸 영** 협의회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 받았고, 충성스런 집단이며; 불복종하거나 태만하지 않는다. **단독 사자**가 어둠 속으로 넘어진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단독 사자들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과 마찬가지로

23:1.1 (256.3) Immediately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the Infinite Spirit brought into being the vast corps of Solitary Messengers. There is no part of the universal creation which is pre-existent to the Solitary Messengers except Paradise and the Havona circuits; they have functioned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from near eternity. They are fundamental to the divine technique of the Infinite Spirit for self-revelation to, and personal contact with, the far-flung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3:1.2 (256.4) Notwithstanding that these messengers are existent from the near times of eternity, they are all aware of a beginning of selfhood. They are conscious of time, being the first of the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possess such a time consciousness. They are the first-born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to be personalized in time and spiritualized in space.

23:1.3 (256.5) These solitary spirits came forth in the dawn of time as full-fledged and perfectly endowed spirit beings. They are all equal, and there are no classes or subdivisions founded on personal variation. Their classifications are based wholly on the type of work to which they are assigned from time to time.

23:1.4 (256.6) Mortals start out as well-nigh material beings on the worlds of space and ascend inward towards the Great Centers; these solitary spirits start out at the center of all things and crave assignment to the remote creations, even to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outermost local universes and even on beyond.

23:1.5 (256.7) Though denominated Solitary Messengers, they are not lonesome spirits, for they truly like to work alone. They are the only beings in all creation who can and do enjoy a solitary existence, albeit they equally enjoy association with the very few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 with whom they can fraternize.

23:1.6 (257.1) Solitary Messengers are not isolated in their service; they are constantly in touch with the wealth of the intellect of all creation as they are capable of “listening in” on all the broadcasts of the realms of their sojourn. They can also intercommunicate with members of their own immediate corps, those beings doing the same kind of work in the same superunivers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others of their number, but they have been directed by the council of the Seven Master Spirits not to do so, and they are a loyal group; they do not disobey or default. There is no record that a Solitary Messenger ever stumbled into darkness.

23:1.7 (257.2) The Solitary Messengers, like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re among the very

지로, 시간과 공간의 법정에게 체포되거나 구류되지 않는, 그 영역들 전반에 두루 활동하는 매우 적은 유형의 존재에 속한다. 그들은 **일곱 으뜸 영**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소환될 수 없지만, 총괄우주 연대기{年代記}를 통틀어서, 어느 **단독 사자**의 사례를 판결하도록 이 **낙원** 협의회가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 사자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유래된 피조 존재들 중에서 믿음 깊스럽고 자아_의존적이며 다재다능하고 철저히 영적이고 광범하게 인정 많은 집단이며; **낙원**의 중앙 **섬**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권세로,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서 인격화돼 작용한다. 그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직접 영향 아래 지방 창조계에서 작용할 때에도, **무한한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직통{直通} 회로에 변함없이 참여한다.

이 **단독 사자**들이 홀로 여행하고 일해야 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은 짧은 기간 머물러 있을 때, 집단을 이뤄 협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낙원** 회로 자양분{滋養分}과 지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전적으로 격리된다. 과도기에 있을 때, 또는 공간 회로와 시간 흐름 속에서 작동할 때, 이 계층에 속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이 아주 근접하게 되면, 순환하는 비교적 높은 힘들과의 접촉에서 둘 다 또는 전체가 제외된다. 설명에 도움이 되는 상징으로 너희가 묘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합선{合線}”이 된다. 그러므로 충돌에 가까워졌음을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확실히 작동하고, 그들의 적당하고 효과적인 기능발휘에 방해되지 않게, 그들을 충분히 분리돼 있도록 틀림없이 유지하는 자동 경보, 즉 경계 신호의 힘이 그들에게 내재돼 있다. 또한 그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과 신성한 **사고 조율사** 둘 다의 근접을 감지하고 알리는, 내재적이고 자동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자들은 개성의 확장 또는 번식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우주 활동은 실제로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무슨 일에든지 본질적이고 유용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우주 직무의 경영에 관련되는 자들을 위해 시간을 크게 절약해 주는 존재이며; 가장 높은 존재에서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돕는다.

2. 단독 사자의 임무

단독 사자들은, 천상의 인격체들의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든지 영구적으로 배속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무할 때, 항상 임무에 따라 직책을 수행

few types of beings operating throughout the realms who are exempt from apprehension or detention by the tribunals of time and space. They could be cited to appear before no one except the Seven Master Spirits, but not in all the annals of the master universe has this Paradise council ever been called upon to adjudicate the case of a Solitary Messenger.

23:1.8 (257.3) These messengers of solitary assignment are a dependable, self-reliant, versatile, thoroughly spiritual, and broadly sympathetic group of created beings derived from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y operate by the authority of the Infinite Spirit resident on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and as personalized on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constant partakers of the direct circuit emanating from the Infinite Spirit, even when they function in the local creations under the immediate influence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23:1.9 (257.4) There is a technical reason why these Solitary Messengers must travel and work alone. For short periods and when stationary, they can collaborate in a group, but when thus ensembled, they are altogether cut off from the sustenance and direction of their Paradise circuit; they are wholly isolated. When in transit, or when operating in the circuits of space and the currents of time, if two or more of this order are in close proximity, both or all are thrown out of liaison with the higher circulating forces. They are “short circuited” as you might describe it in illustrative symbols. Therefore they have inherent within them a power of automatic alarm, a warning signal, which unerringly operates to apprise them of approaching conflicts and unfailingly keeps them sufficiently separated as not to interfere with their proper and effective functioning. They also possess inherent and automatic powers which detect and indicate the proximity of both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nd the divine Thought Adjusters.

23:1.10 (257.5) These messengers possess no power of personality extension or reproduction, but there is practically no work of the universes in which they cannot engage, and to which they cannot contribute something essential and helpful. Especially are they the great timesavers for those who are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and they assist us all,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2. ASSIGNMENTS OF SOLITARY MESSENGERS

23:2.1 (257.6) Solitary Messengers are not permanently attached to any individual or group of celestial personalities. They are on duty, always by

하며, 그렇게 근무하는 동안에 자신이 배속된 그 영역을 지휘하는 자의 직접 감독 아래 활동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도 갖지 않으며; **단독 사자**다.

무한한 영이 **단독 사자**들을 다음과 같은 일곱 부서의 근무에 배정한다:

1. **낙원 삼위일체 사자.**
2. **하보나 회로 사자.**
3. **연방우주 사자.**
4. **지방우주 사자.**
5. **지시되지 않은 임무 탐험자.**
6. **특별한 임무의 대사와 밀사{密使}.**
7. **진리 계시자.**

이 영 사자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한 근무 유형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서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런 전환이 계속 발생한다. **단독 사자**들 중에서 분리된 계층은 없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똑같고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을 번호로 지명하지만, **무한한 영**은 그들 각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머지 우리에게 그들은 자신의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 또는 번호로 알려져 있다.

1. **낙원 삼위일체 사자**들. 나는 **삼위일체**에게 배정된 사자들 집단의 업무를 많이 계시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은 **신격**들의 신뢰받는 비밀스런 하인이며, 계시되지 않은 정책 및 **하나님**들의 미래 운영을 포함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맡았을 때,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 계층에 위탁된 신용을 결코 배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완전성을 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격**들이 **완전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유란시아에 혼동과 혼란이 있다고 해서, 직무를 그렇지 않게 관리할 관심 또는 역량이 **낙원 통치자**들에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창조주**는 **유란시아**를 실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지만, 그런 **에덴**은 필연성이라는 모루와 고통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하나님**들이 너희 세계에 분명히 이루려는, 그런 강력하고 고귀하며 노련한 성품 개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중앙우주의 세계들에서 만물이 절묘하게 완전하고 그들의 최상의 목적에 무한히 적응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걱정과 슬픔, 너희의 시련과 실망은 너희의 구체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assignment, and during such service they work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ose who direct the realms of their attachment. Among themselves they have neither organization nor government of any kind; they are *Solitary Messengers*.

23:2.2 (258.1) Solitary Messengers are assigned by the Infinite Spirit to the following seven divisions of service:

23:2.3 (258.2) 1. Messengers of the Paradise Trinity.

23:2.4 (258.3) 2. Messengers of the Havona Circuits.

23:2.5 (258.4) 3. Messengers of the Superuniverses.

23:2.6 (258.5) 4.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23:2.7 (258.6) 5. 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23:2.8 (258.7) 6. Ambassadors and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23:2.9 (258.8) 7. Revelators of Truth.

23:2.10 (258.9) These spirit messengers are in every sense interchangeable from one type of service to another; such transfer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There are no separate orders of Solitary Messengers; they are spiritually alike and in every sense equal. While they are generally designated by number, they are known to the Infinite Spirit by personal names. They are known to the rest of us by the name or number designative of their current assignment.

23:2.11 (258.10) 1. *Messengers of the Paradise Trinity.* I am not permitted to reveal much of the work of the group of messengers assigned to the Trinity. They are the trusted and secret servants of the Deities, and when intrusted with special messages which involve the unrevealed policies and future conduct of the Gods, they have never been known to divulge a secret or betray the confidence reposed in their order. And all this is related in this connection, not to appear boastful of their perfection, but rather to point out that the Deities can and do create *perfect beings*.

23:2.12 (258.11) The confusion and turmoil of Urantia do not signify that the Paradise Rulers lack either interest or ability to manage affairs differently. The Creators are possessed of full power to make Urantia a veritable paradise, but such an Eden woul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ose strong, noble, and experienced characters which the Gods are so surely forging out on your world between the anvils of necessity and the hammers of anguish. Your anxieties and sorrows, your trials and disappointments, are just as much a part of the divine plan on your sphere as are the exquisite perfection and infinite adaptation of all things to their supreme purpose on the worlds of the central and perfect universe.

2. **하보나 회로 사자**들. 너희는 상승하는 생애 내내 막연하게 그러나 점점 더 **단독 사자**의 현존을 감지하게 되겠지만,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면하게 될 사자들 가운데 첫째는 **하보나** 회로의 사자들이 될 것이다.

단독 사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원주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서로 연합할 때 기능적으로 매우 약화(弱化)되는 이 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과 매우 가깝고, 개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런 거의 초월적인 인격체들의 영과, 신성하게 완전한 이 존재들의 정신이 접촉한 결과로 생기는 최고 만족감을 인간 정신에게 옮기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3. **연방우주 사자**들. 일곱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삼위일체** 기원에 속하는 그런 인격체들, 즉 신성한 능력과 경영 지혜를 가진 그런 삼총사인 **태고 항존자**들에게, **단독 사자**가 풍부하게 공급돼 있다. 오직 이 계층의 사자(使者)를 통해서만, 한 연방우주의 삼중 통치자가 다른 연방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단독 사자**들은 한 연방우주 본부에서 다른 연방우주 본부로 직접 파송되기에 --어쩌면,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영 지성체 유형이다. 다른 모든 인격체는 그런 여행을 위해서 **으뜸 영**의 행정 세계와 **하보나**를 경유해야 한다.

인력 사자들이나 반사성(反射性)이나 방송(放送)을 이용해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려면, 지식의 출처에 한 **단독 사자**를 보내야 한다. **유란시아**에 생명체가 나타나기 오래 전에, 지금 나와 연합돼 있는 사자가 **우버사**로부터 중앙우주로 가는 어떤 사명에 배정됐었다--거의 100만 년 동안 **오르본톤**의 출석점호에서 빠졌지만, 때가 되자 바람직한 정보를 갖고 돌아왔다.

연방우주에서 **단독 사자**들의 봉사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며;그들은 높은 법정 집행인으로서, 또는 그 영역의 복지를 위한 지성 수집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연방창조물 가운데 **오르본톤**에서 근무하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필요성이 여기서 가장 크고 또한 웅맹스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배가(倍加)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더 가난한 영역일수록 더 충만히 작용하는 만족감을 누린다.

4. **지방우주 사자**들. 지방우주에서 봉사할 때, **단독 사자**들의 기능발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23:2.13 (258.12) 2. *Messengers of the Havona Circuits.* Throughout the ascendant career you will be vaguely, but increasingly, able to detect the presence of the Solitary Messengers, but not until you reach Havona will you recognize them unmistakably. The first of the messengers you will see face to face will be those of the Havona circuits.

23:2.14 (258.13) Solitary Messengers enjoy special relations with the natives of the Havona worlds. These messengers, who are so functionally handicapped when associating with one another, can and do have a very close and personal communion with the Havona natives. But it is quite impossible to convey to human minds the supreme satisfactions consequent upon the contact of the minds of these divinely perfect beings with the spirits of such near-transcendent personalities.

23:2.15 (259.1) 3. *Messengers of the Superuniverses.* The Ancients of Days, those personalities of Trinity origin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ose trios of divine power and administrative wisdom, are bountifully supplied with Solitary Messengers. It is only through this order of messengers that the triune rulers of one superuniverse can directly and personally communicate with the rulers of another. Solitary Messengers are the only available type of spirit intelligence — aside, possibly, from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 that can be dispatched from the headquarters of one superuniverse directly to the headquarters of another. All other personalities must make such excursions by way of Havona and the executive worlds of the Master Spirits.

23:2.16 (259.2) There are some kinds of information which cannot be obtained either by Gravity Messengers, reflectivity, or broadcast. And when the Ancients of Days would certainly know these things, they must dispatch a Solitary Messenger to the source of knowledge. Long before the presence of life on Urantia the messenger now associated with me was assigned on a mission out of Uversa to the central universe — was absent from the roll calls of Orvonton for almost a million years but returned in due time with the desired information.

23:2.17 (259.3) There is no limitation upon the service of Solitary Messengers in the superuniverses; they may function as executioners of the high tribunals or as intelligence gatherers for the good of the realm. Of all the supercreations they most delight to serve in Orvonton because here the need is greatest and the opportunities for heroic effort are greatly multiplied. In the more needy realms we all enjoy the satisfaction of a more replete function.

23:2.18 (259.4) 4.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In the services of a local universe

그들이 비록 군림하는 **으뜸 아들**의 충만한 관할권 아래에 있더라도,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동기{動機}와 의도를 신실하게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 본부로부터 직접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성좌 아버지**들이나 **체계 주권자**들 또는 **행성 왕자**들과 접촉하면서 일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지방우주에서 활약하는 모든 사자{使者}에게 해당된다. **창조주 아들**이 자기 우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서 승격되어 그의 손에 모든 능력이 집중되기 전에는, 지방우주들의 이 사자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총체적 지시에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거주 대표자인 **합동 항존자**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5. **지시되지 않은 임무 탐험자**들. **단독 사자**의 예비 단체가 너무 많이 모집되면,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가운데 하나가 탐험 자원자들을 모집하며; 한 번도 자원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우주의 조직화되는 중심부분을 발견하는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는 탐험자로서 파송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공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제공한 실마리를 검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낙원 신격**들은 발견되지 않은 이런 공간 에너지 체계의 실존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지만, 그런 정보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단독 사자**들이 새롭게 조직되는 이런 에너지 중심을 탐험하고 도표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현상은 심지어 인접한 영역의 지성체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래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한 계층으로서, **단독 사자**들은 인력{引力}에 매우 민감하며; 따라서 그들은 언젠가 매우 작은 검은 행성, 즉 생명체 실험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 세계의 현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받지 않은 임무를 떠난 이 사자_탐험가들이 총괄우주를 순찰한다. 그들은 모든 외부 공간에서 기입되지 않은 지역을 항상 원정여행 하고 있다. 외부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행사항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단독 사자**들이 탐구한 덕택으로 얻은 것인데, 그들은 종종 천상의 천문학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6. **특별한 임무의 대사** 및 **밀사**들. 같은 연방 우주 안에 위치한 지방우주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그들의 원주민 계층에서 선택된 대사들을 관례적으로 교환한다. 그러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한 영역을 다른 영역에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단독 사자**들은 한 지방 창조계로부터 다른 지방 창조계로 대사로서 가 달라고 종종 요청 받는다. 예를 들면: 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어떤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스라빔에 둘러싸인 대사가 멀리_떨어진 이 우

there is no limit upon the functioning of the Solitary Messengers. They are the faithful revealers of the motives and intent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lthough they are under the full jurisdiction of the reigning Master Son. And this is true of all messengers operating in a local universe, whether they are traveling out directly from universe headquarters, or whether they are acting temporarily in liaison with Constellation Fathers, System Sovereigns, or Planetary Princes. Before the concentration of all power in the hands of a Creator Son at the time of his elevation as sovereign ruler of his universe, these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function under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are immediately responsible to their resident representative, the Union of Days.

23:2.19 (259.5)

5. *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When the reserve corps of the Solitary Messengers is overrecruited, there issues from one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 call for exploration volunteers; and there is never a lack of volunteers, for they delight to be dispatched as free and untrammelled explorers, to experience the thrill of finding the organizing nucleuses of new worlds and universes.

23:2.20 (259.6)

They go forth to investigate the clues furnished by the space contemplators of the realms. Undoubtedly the Paradise Deities know of the existence of these undiscovered energy systems of space, but they never divulge such information. If the Solitary Messengers did not explore and chart these newly organizing energy centers, such phenomena would long remain unnoticed even by the intelligences of adjacent realms. Solitary Messengers, as a class, are highly sensitive to gravity; accordingly they can sometimes detect the probable presence of very small dark planets, the very worlds which are best adapted to life experiments.

23:2.21 (260.1)

These messenger-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patrol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constantly out on exploring expeditions to the uncharted regions of all outer space. Very much of the information which we possess of transactions in the realms of outer space, we owe to the explorations of the Solitary Messengers as they often work and study with the celestial astronomers.

23:2.22 (260.2)

6. *Ambassadors and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Local universes situated within the same superuniverse customarily exchange ambassadors selected from their native orders of sonship. But to avoid delay, Solitary Messengers are frequently asked to go as ambassadors from one local creation to another, to represent and interpret one realm to another. For example: When a newly inhabited realm is discovered, it may prove to be so remote in space

주에 당도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스라빔에게 둘러싸인 존재는, **유란시아**의 시간과 거리 단위로, 초당 558,840마일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끌어당기는 직선구간뿐 아니라, 거대한 별, 역류, 그리고 우회로{迂廻路}들이, 모두 그런 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먼 여행에서는 평균 속도가 초당 550,000마일이 될 것이다.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우주에 원주민 대사가 도착하기까지 수백 년 소요되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즉시 가서 잠정적 대사로 활동하라고, **단독 사자**에게 종종 요청한다. **단독 사자**는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인력 사자**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무관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다. 또한 그들은 다른 경우에 특별한 임무를 띤 밀사로서 이바지한다.

7. **진리 계시자**들. **단독 사자**들은 진리를 계시하는 임무를 그들 계층 중에서 가장 고귀한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연방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로 가끔 활동한다. 그들은 세계들과 체계들에 진리의 계시를 확장하도록 파송되는 위원회에 종종 배속된다.

3. 시간과 공간에서 단독 사자의 봉사

단독 사자들은, 방송 서비스 또는 반사성 장치의 활용이 부적합할 경우에,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빨리 전하는 일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신용 있는 인격체 가운데 최고 유형이다. 그들은 끝없이 다양한 임무로 이바지하는데, 특히 시간 요소가 포함된 곳에서, 그 영역의 영적 존재와 물질 존재들을 도와준다. 연방우주 영토의 근무에 배정된 모든 계층 중에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다재다능한 인격화된 존재다.

우주에는 이동할 목적으로 인력{引力}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들로 넉넉히 공급돼 있으며;그들은 언제든지 --즉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지만, 인격자가 아니다. **인력 사자** 및 **초월 기록원** 같은, 어떤 다른 인력 횡단자들은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경영에는 쓸모없다. 세계들이 천사와 사람 그리고 인격있는 높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스라빔에 둘러싸이지 않은 대부분의 존재들의 속도{速度} 한계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볼 때, 초당 186,280마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중도 피조물 및 특별한 다른 존재들은 종종 두 배 속도를--곧 초당 372,560마일을-- 낼 수 있는 반면, 스라빔과 기타 존재들은 세 배 속도, 즉 초당 약 558,840

that a long time will pass before an enseraphimed ambassador can reach this far-distant universe. An enseraphimed being cannot possibly exceed the velocity of 558,840 Urantia miles in one second of your time. Massive stars, crosscurrents, and detours, as well as attraction tangents, will all tend to retard such speed so that on a long journey the velocity will average about 550,000 miles per second.

23:2.23 (260.3) When it develops that it will require hundreds of years for a native ambassador to reach a far-distant local universe, a Solitary Messenger is often asked to proceed there immediately to act as ambassador ad interim. Solitary Messengers can go in very short order, not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as do the Gravity Messengers, but nearly so. They also serve in other circumstances as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23:2.24 (260.4) 7. *Revelators of Truth.* The Solitary Messengers regard the assignment to reveal truth as the highest trust of their order. And they function ever and anon in this capacity, from the superuniverses to the individual planets of space. They are frequently attached to commissions which are sent to enlarge the revelation of truth to the worlds and systems.

3. TIME AND SPACE SERVICES OF SOLITARY MESSENGERS

23:3.1 (260.5)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highest type of perfect and confidential personality available in all realms for the quick transmission of important and urgent messages when it is inexpedient to utilize either the broadcast service or the reflectivity mechanism. They serve in an endless variety of assignments, helping out the spiritual and material beings of the realms, particularly where the element of time is involved. Of all orders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domains, they are the highest and most versatile personalized beings who can come so near to defying time and space.

23:3.2 (260.6) The universe is well supplied with spirits who utilize gravity for purposes of transit; they can go anywhere any time — instanter — but they are not persons. Certain other gravity traversers are personal beings, such as Gravity Messengers and Transcendental Recorders, but they are not available to the super- and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ors. The worlds teem with angels and men and other highly personal beings, but they are handicapped by time and space: The limit of velocity for most nonenseraphimed beings is 186,280 miles of your world per second of your time; the midway creatures and certain others can, often do, attain double velocity — 372,560

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아무튼, **단독 사자**를 제외하면, 인력 횡단자의 순간 속도와, 스라핌의 비교적 느린 속도 사이에서 작용하는 운반 인격체 또는 사자{使者} 인격체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단독 사자**들은 대체로, 임무 성취에 인격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와, 어떤 다른 유형으로 즉시 준비된 인격있는 사자를 보냄으로써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시간 손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파송하고 봉사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들은 광우주의 혼합된 보편적 추세에 동조할 수 있는, 분명히 인격화 된 유일한 존재다. 공간을 지나갈 때 그들의 속도는, 개입되는 영향의 큰 다양성에 따라 변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내 동료 사자는, 너희 시간으로 초당 841,621,642,000마일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기록돼 있다.

어떤 영이 정말로 인격적인 동시에 그런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물질 유형의 정신에게 설명하는 것은 내 역량을 전적으로 벗어난다. 그러나 바로 이 **단독 사자**들은, **유란시아**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불가해한 속도로 실제로 왕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경영의 전체 질서는 인격적 요소를 크게 잃어버렸을 것이다.

단독 사자들은, 멀리 있는 공간 지역, 즉 광우주의 확립된 회로{回路}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 전반에 걸쳐서 비상 소통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활동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식으로, 한 명의 사자{使者}가, 약 100광년{光年} 떨어져있는 동료 사자에게 공간을 통해서 신호{信號}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연방우주 직무를 수행함에서 우리와 협동하는 수많은 존재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간 절약을 돕는 면에서, 이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시간이라는 제약조건을 계산해야 하며; 따라서 공간에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는 **단독 사자**들의 위대한 봉사는, 그들이 친히 소통하는 특권으로 인해, 그리고 엄청난 운반 속도 덕분에, 시간에게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독 사자가 형체를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지, 나는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인격과 연합할 수 있는 그 형체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그들은 영 존재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유형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영 현존을 소유한다. **단독 사자**는 완전히_성장한 인격체의 모든 특권

miles per second — while the seraphim and others can traverse space at triple velocity, about 558,840 miles per second. There are, however, no transit or messenger personalities who function between the instantaneous velocities of the gravity traversers and the comparatively slow speeds of the seraphim, except the Solitary Messengers.

23:3.3 (261.1) Solitary Messengers are, therefore, generally used for dispatch and service in those situations where personality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e assignment, and where it is desired to avoid the loss of time which would be occasioned by the sending of any other readily available type of personal messenger. They are the only definitely personalized beings who can synchronize with the combined universal currents of the grand universe. Their velocity in traversing space is variable, depending on a great variety of interfering influences, but the record shows that on the journey to fulfill this mission my associate messenger proceeded at the rate of 841,621,642,000 of your miles per second of your time.

23:3.4 (261.2) It is wholly beyond my ability to explain to the material type of mind how a spirit can be a real person and at the same time traverse space at such tremendous velocities. But these very Solitary Messengers actually come to, and go from, Urantia at these incomprehensible speeds; indeed, the whole economy of universal administration would be largely deprived of its personal element were this not a fact.

23:3.5 (261.3) The Solitary Messengers are able to function as emergency lines of communication throughout remote space regions, realms not embraced within the established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It develops that one messenger, when so functioning, can transmit a message or send an impulse through space to a fellow messenger about one hundred light-years away as Urantia astronomers estimate stellar distances.

23:3.6 (261.4) Of the myriads of beings who co-operate with us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none are more important in practical helpfulness and timesaving assistance. In the universes of space we must reckon with the handicaps of time; hence the great service of the Solitary Messengers, who, by means of their personal prerogatives of communication, are somewhat independent of space and, by virtue of their tremendous transit velocities, are so nearly independent of time.

23:3.7 (261.5) I am at a loss to explain to Urantia mortals how the Solitary Messengers can be without form and yet possess real and definite personalities. Although they are without that form which would naturally be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hey do possess a spirit presence which is discernible by all higher types of spirit

과, 결합된 형체 없는 영의 거의 모든 장점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계층의 존재다. 그들은 참된 인격자이며, 그럼에도 인격아닌 영 형태화의 모든 속성을 거의 다 부여받았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대개--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고-- 어떤 피조물이든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애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 비례하여 인격 특권을 축소시킨다. **단독 사자**들은 이 일반 법칙에서 제외된다. 영적 표현, 신성한 봉사, 개인적 사역, 그리고 시공우주 소통의 끝없는 통로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거의 제한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우주 경영 체험에 비추어 이 훌륭한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이 다재다능하게 협동하지 않으면 연방우주 직무를 얼마나 조정하기 어려운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단독 사자**는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성장하면, 다른 유형의 영 사역자들이, 그리고 **주권자 아들**들의 피조물 및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의 피조물 같은, 이런 새로운 창조계에서 지원되는 그 존재들이, 확장된 경영 업무를 점점 더 많이 수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4. 단독 사자의 특별한 사역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의 영 존재를 위해 인격체들을 조정하는 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사역은 광범한 영적 세계의 모든 인격체를 비슷하게 만들도록 돕는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의 집단 정체성 의식을 발전시키기에 많이 기여한다. 각 유형의 영 존재마다, 특별한 **단독 사자** 집단의 도움을 받는데, **단독 사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무리 서로 달라도, 모든 기타 유형 및 계층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귀는 역량을 갖도록 촉진시킨다.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 및 계층의 유한한 인격체들을 조화시키는--곧 심지어 총괄우주 전면 통제관들의 유한절대 체제와 접촉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량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서 더러는, **무한한 영**이 이 사자들을 창조한 것은, 어떤 면에서 **공동 행위자**가 **최상급_궁극 정신**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완결성취자와 **낙원 시민**이, “시간과 영원성의 자녀”의 삼자일체됨에--곧 **최상급_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정신 잠재력을 포함하는 어떤 처리사항에-- 협동할 때,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런 인격

beings.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only class of beings who seem to be possessed of well-nigh all the advantages of a formless spirit coupled with all the prerogatives of a full-fledged personality. They are true persons, yet endowed with nearly all of the attributes of impersonal spirit manifestation.

23:3.8 (261.6) In the seven superuniverses, ordinarily — but not always — everything which tends to increase any creature's liberation from the handicaps of time and space proportionately diminishes personality prerogatives. Solitary Messengers are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law. They are in their activities all but unrestricted in the utilization of any and all of the limitless avenues of spiritual expression, divine service, personal ministry, and cosmic communication. If you could view these extraordinary beings in the light of my experience in universe administration, you would comprehend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ordinate superuniverse affairs were it not for their versatile co-operation.

23:3.9 (262.1) No matter how much the universe may enlarge, no more Solitary Messengers will probably ever be created. As the universes grow, the expanded work of administration must be increasingly borne by other types of spirit ministers and by those beings who take origin in these new creations, such as the creatures of the Sovereign Sons and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4. SPECIAL MINISTRY OF SOLITARY MESSENGERS

23:4.1 (262.2) The Solitary Messengers seem to be personality co-ordinators for all types of spirit beings. Their ministry helps to make all the personalities of the far-flung spiritual world akin. They contribute much to the development, in all spirit beings, of a consciousness of group identity. Every type of spirit being is served by special groups of Solitary Messengers who foster the ability of such beings to understand and fraternize with all other types and orders, however dissimilar.

23:4.2 (262.3) The Solitary Messengers demonstrate such an amazing ability to co-ordinate all types and orders of finite personality — even to make contact with the absonite regime of the master universe overcontrollers — that some of us postulate that the creation of these messengers by the Infinite Spirit is in some manner related to the Conjoint Actor's bestowal of Supreme-Ultimate Mind.

23:4.3 (262.4) When a finaliter and a Paradise Citizen co-operate in the trinitization of a “child of time and eternity” — a transaction involving the unrevealed mind potentials of the Supreme-Ultimate — and

체가 **바이스저링톤**으로 파송됐을 때, (추측컨대 그런 성격 정신의 증여에 영향을 받는 인격체인) **단독 사자**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그런 아들에게 항상 수호자_동무로 배정된다. 이 사자(使者)는 새로운 운명의 아들이 배정된 세계로 갈 때 따라가며, 더 이상 **바이스저링톤**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성의 자녀의 운명에 그렇게 배속됐을 때, **단독 사자**는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단독 감독 아래로 영원히 옮겨간다. 그런 색다른 연합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특한 인격체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 동업관계가 **바이스저링톤**에서 계속 이뤄져 왔지만, 어떤 한 쌍도 거기서 떠난 적이 없다.

단독 사자들은 숫자가 고정돼 있지만, 운명의 아들들의 삼자일체됨은 무제한의 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삼자일체된 운명의 아들 각자가 **단독 사자**를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자들의 공급이 바닥날 것 같다. 광우주에서 누가 그들의 일을 맡을 것인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발전 결과가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어느 먼 미래에,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존재들이 광우주를 더 긴밀하게 경영하고, 한편 단일_지원 및 이중_지원 피조물이 외부 공간의 그 영역들 속으로 이동할 것인가? 사자들이 예전의 근무로 돌아온다면, 이 운명의 아들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단독 사자**들의 공급이 이 운명의 아들들의 수호자_동무로 다 흡수되고 나면, 완결성취자들과 **낙원_하보나** 원주민 사이의 삼자일체됨이 중단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단독 사자**들이 모두 **바이스저링톤**에 모일 것인가? 이 색다른 영 인격체들은, 아직 운명이 계시되지 않은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과 영원히 연합될 것인가? **바이스저링톤**에 모이는 이 쌍들이, 전능한 신비 존재인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단독 지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무슨 의미를 덧붙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비롯해서, 유사한 많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있으며, 수많은 다른 계층의 천상의 존재도 묻고 있지만, 우리는 해답을 모른다.

이 진행사항은, 우주 경영에서 많은 유사 사건과 함께, 광우주의 요원들,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의 요원들조차, 분명하고 확실한 재조직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외부 공간의 영역 도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방대한 에너지 진화와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영원한 과거가 체험해 온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하게 될 그런 우주 진화 현상을, 영원한 미래에 목격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되겠지만, 계속_증대되는 기대

when such an unclassified personality is dispatched to Vicegerington, a Solitary Messenger (a conjectured personality repercussion of the bestowal of such deity mind) is always assigned as guardian-companion to such a creature-trinitized son. This messenger accompanies the new son of destiny to the world of his assignment and nevermore leaves Vicegerington. When thus attached to the destinies of a child of time and eternity, a Solitary Messenger is forever transferred to the sole supervis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What the future of such an extraordinary association may be, we do not know. For ages these partnerships of unique personalities have continued to forgather on Vicegerington, but not even a single pair has ever gone forth therefrom.

23.4.4 (262.5) Solitary Messengers are of stationary numbers, but the trinitization of the sons of destiny is apparently an unlimited technique. Since each trinitized son of destiny has assigned to him a Solitary Messenger, it appears to us that at some time in the remote future the supply of messengers will become exhausted. Who will take up their work in the grand universe? Will their service be assumed by some new development amo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Is the grand universe at some remote period going to be more nearly administered by Trinity-origin beings while the single- and dual-origin creatures move on into the realms of outer space? If the messengers return to their former service, will these sons of destiny accompany them? Will the trinitizations between finaliters and Paradise-Havoners cease when the supply of Solitary Messengers has been absorbed as guardian-companions of these sons of destiny? Are all our efficient Solitary Messengers going to be concentrated on Vicegerington? Are these extraordinary spirit personalities going to be eternally associated with these trinitized sons of unrevealed destiny? What significance should we attach to the fact that these couples forgathering on Vicegerington are under the exclusive direction of those mighty mystery beings,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and many similar questions we ask ourselves, and ask numerous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but we do not know the answers.

23.4.5 (263.1) This transaction, together with many similar occurrences in universe administration, unmistakably indicates that the personnel of the grand universe, even that of Havona and Paradise, is undergoing a definite and certain reorganization in co-ordination with, and with reference to, the vast energy evolutions now taking place throughout the realms of outer space.

23.4.6 (263.2)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 eternal future will witness phenomena of universe evolution which will far transcend all that the eternal past has experienced. And we anticipate

감과 강렬한 흥미를 갖고 그런 거대한 모험을 기다린다.

[우버사에서 온,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such tremendous adventures, even as you should, with keen relish and ever-heightening expectation.

^{23:4.7 (263.3)}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from Uversa.]

제24편.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

⇨ 023

유랜시아 책

025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4편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

섹션

소개

1. 우주 회로 감독관
2. 인구조사 지휘자
3.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4. 부 검열관
5. 배정된 파수꾼
6. 졸업생 안내자
7.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소개

우버사에서, 우리는 공동 창조주의 모든 인격체 및 실재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무한한 영의 고등{高等} 인격체들, 공간의 사자 무리, 그리고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이며, 그들은 펄사자 진보라는 상승 기획을 따르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관여하는 영 존재다.

본 문서들에서 언급돼 있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는, 광우주 전역에서 일곱 분야로 활동한다:

1. 단독 사자.
2. 우주 회로 감독관.
3. 인구조사 지휘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5. 부{副} 검열관.
6. 배정된 파수꾼.

7. 조어새 미니틀

PAPER 24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 The Census Directors
3.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4. The Associate Inspectors
5. The Assigned Sentinels
6. The Graduate Guides
7. Origin of the Graduate Guides

INTRODUCTION

24:0.1 (264.1) ON UVERSA we divide all personalities and entities of the Conjoint Creator into three grand divisions: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hose spirit beings who are concerned with teaching and ministering to the will creatures of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24:0.2 (264.2) Thos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at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function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 seven divisions:

24:0.3 (264.3) 1. Solitary Messengers.

24:0.4 (264.4)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4:0.5 (264.5) 3. Census Directors.

24:0.6 (264.6)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24:0.7 (264.7) 5. Associate Inspectors.

24:0.8 (264.8) 6. Assigned Sentinels.

24:0.9 (264.9) 7. Graduate Guides

1. 졸업생 안내사.

단독 사자, 회로 감독관, 인구조사 지휘자, 및 개인 조력자의 특징은, 반인력{反引力}이라는 엄청난 재능을 소유한 것이다. **단독 사자**에게는 알려진 일반 본부가 없으며, 온갖 우주를 돌아다닌다. **우주 회로 감독관**과 **인구조사 지휘자**는 연방 우주 수도에 본부를 둔다.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는, 중앙에 있는 **빛의 섬**에 주둔한다. **부{副} 검열관** 및 **배정된 파수꾼**은, 지방우주 수도{首都}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체계 수도들에 각각 주둔한다. **졸업생 안내사**는 **하보나** 우주에 거주하고, 그 20억 세계에서 활동한다. 이 고등 인격체 대부분이 지방우주에 주둔하지만, 진화 영역의 경영에 유기적으로 배속돼 있지는 않다.

이 집단을 구성하는 일곱 계층 중에서, **단독 사자**만이, 그리고 아마 **개인 조력자**도, 온갖 우주를 범위로 삼는다. **낙원**에서 바깥쪽으로: **하보나** 회로들을 거쳐서 연방우주 수도로, 그리고 거기서 구역과 지방우주들 및 그 하위구획들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인간거주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단독 사자**를 만나게 된다. **단독 사자**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에 속하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봉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1. 우주 회로 감독관

공간에 있는 방대한 동력 흐름과 영 에너지 회로들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엄청난 에너지 체계 전체가 통제 아래 있으며; 영리하게 감독받고 있다. **우주 회로 감독관**들은, 순전히 물리적인 에너지, 즉 물질적인 에너지 영역에만--곧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분야에만--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영적인 에너지 회로들에 관여하고, 상당히 발달된 영적 존재들과 모론시아 또는 과도기 유형의 지성 피조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변경된 회로에도 관여한다. 감독관들은 에너지 회로와 신성의 초월본질을 기원시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체계와 영원성의 모든 상급 영 회로, 그리고 광우주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경영에 고려되는 모든 상대적 영 회로와 상관이 있다. 그들은 **낙원 섬** 밖에 있는 그런 모든 영_에너지 회로를 지휘하고 조종한다.

우주 회로 감독관들은 **무한한 영**의 독자적 창조물이며, **공동 행위자**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1. Graduate Guides.

24:0.10 (264.10) Solitary Messengers, Circuit Supervisors, Census Directors, and the Personal Aids are characterized by the possession of tremendous endowments of antigravity. The Solitary Messengers are without known general headquarters; they roam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nd the Census Directors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The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are stationed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The Associate Inspectors and the Assigned Sentinels are respectively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and on the capitals of their component systems. The Graduate Guides are resident in the Havona universe and function on all its billion worlds. Most of these higher personalities have stations in the local universes, but they are not organically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s of the evolutionary realms.

24:0.11 (264.11) Of the seven classes composing this group, only the Solitary Messengers and perhaps the Personal Aids range the universe of universes. Solitary Messengers are encountered from Paradise outward: through the Havona circuits to the superuniverse capitals and thence out through the sectors and local universes, with their subdivisions, and even to the inhabited worlds. Although Solitary Messengers belong to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ir origin, nature, and service have been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per.

1.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4:1.1 (265.1) The vast power currents of space and the circuits of spirit energy may seem to operate automatically; they may appear to function without let or hindrance, but such is not the case. All these stupendous systems of energy are under control; they are subject to intelligent supervision.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concerned, not with the realms of purely physical or material energy — the domain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 but with the circuits of relative spiritual energy and with those modified circuits which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both the highly developed spiritual beings and the morontia or transition type of intelligent creatures. The supervisors do not give origin to circuits of energy and superessence of divinity, but in general they have to do with all higher spirit circuits of time and eternity and with all relative spirit circuits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ponent parts of the grand universe. They direct and manipulate all such spirit-energy circuits outside the Isle of Paradise.

24:1.2 (265.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the exclusive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y

활동한다.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네 계층으로 인격화 된다:

1. **최고 회로 감독관.**
2. **부{副} 회로 감독관.**
3. **2차 회로 감독관.**
4. **3차 회로 감독관.**

하보나의 최고 감독관과 일곱 연방우주의 부 감독관은 완성된 숫자로 이뤄져 있으며;이 계층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다. 최고 감독관은 숫자가 일곱이며, 일곱 **하보나** 회로를 조종하는 세계에 주둔한다. 일곱 연방우주 회로는, 일곱 부 감독관으로 구성된 훌륭한 집단의 관리를 받는데, 그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 세계인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 본부를 둔다. 여기서 그들은 공간에 있는 연방우주 회로들을 감독하고 지휘한다.

영의 이 **낙원** 구체들에서 일곱 명의 부 회로 감독관, 그리고 **지존 동력 중심**들 중에서 첫째 계층이, **최상급 행정관**들의 지시 하에 접촉을 이루며, 이것은 일곱 연방우주에게 나눠주는 **낙원** 이하의 모든 물질적 및 영적 회로가 결국 조화{調和}를 이루게 한다.

각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을 위한 2차 감독관들이 주둔한다. 대구역과 소구역들은 연방정부의 경영 부서이지만, 영{靈} 에너지를 감독하는 이 문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2차 회로 감독관이 광우주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버사**에는 이 존재가 84,691명 있다. 2차 감독관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으며;때때로 **최상급 행정관** 세계들에서 70명씩 무리지어 나타난다. 우리 관할권에 속하는 새롭게 진화하는 우주에, 영 에너지 및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로를 따로 설치하는 일을 추천하는 대로, 우리는 요청해서 그들을 확보한다.

3차 회로 감독관들은 모든 지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활동한다. 이 계층은, 2차 감독관들처럼, 계속 창조되는데, 700명씩 무리지어 창조된다. **태고 항존자들**이 그들을 지방우주에 배정한다.

회로 감독관들은, 자신의 특수한 과제를 위해서 창조되며, 자신이 원래 임명된 집단에서 영원히 근무한다. 그들은 근무하는 동안 교대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이 처음 배정된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오랜 세월 연구한다. 예를 들면:3차 회로 감독관 572,842_번은, 너희 지방우주가 초기에 구상{構想}될 때부터 **살빙톤**에서 계속

function solely as the agents of the Conjoint Actor. They are personalized for service in the following four orders:

- 24:1.3 (265.3) 1. Supreme Circuit Supervisors.
- 24:1.4 (265.4) 2. Associate Circuit Supervisors.
- 24:1.5 (265.5) 3. Secondary Circuit Supervisors.
- 24:1.6 (265.6) 4. Tertiary Circuit Supervisors.

24:1.7 (265.7) The supreme supervisors of Havona and the associate superviso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of completed numbers; no more of these orders are being created. The supreme supervisors are seven in number and are stationed on the pilot worlds of the seven Havona circuits. The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in the charge of a marvelous group of seven associate supervisors, who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world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From here they supervise and direct the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of space.

24:1.8 (265.8) On thes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the seven associate circuit supervisors and the first order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effect a liaison which,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Executives, results in the sub-Paradise co-ordination of all material and spiritual circuits passing out to the seven superuniverses.

24:1.9 (265.9)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each superuniverse are stationed the secondary supervisors for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major and minor sectors ar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supergovernments but are not concerned in these matters of spirit-energy supervision. I do not know how many secondary circuit supervisors there are in the grand universe, but on Uversa there are 84,691 of these beings. Secondary supervisors are being created right along; from time to time they appear in groups of seventy on the worlds of the Supreme Executives. We obtain them on requisition as we arr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circuits of spirit energy and liaison power to the newly evolving universes of our jurisdiction.

24:1.10 (265.10) A tertiary circuit supervisor functions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very local universe. This order, like the secondary supervisors, is of continuous creation, being created in groups of seven hundred. They are assigned to the local universes by the Ancients of Days.

24:1.11 (265.1) Circuit supervisors are created for their specific tasks, and they eternally serve in the group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They are not rotated in service and hence make an agelong study of the problems found in the realm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For example: Tertiary circuit supervisor number 572,842 has functioned on

활동해 왔고, **네바돈 미가엘**의 개인 참모진 가운데 일원이다.

지방우주 또는 그보다 높은 우주들에서 활동하든지 안 하든지, 회로 감독관들은 모든 영 메시지 전달에 적절하고 모든 인격체 통행에 적절한 회로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휘한다. 회로를 감독하는 그들의 업무에서, 이 유능한 존재들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매개체, 세력, 및 인격체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계시되지 않은 “회로를 통제하는 높은 영 인격체들”을 활용하며,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수많은 참모진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행성 왕자**가 **만유의 아버지** 및 그의 대리 **아들**에 대해서 반역할 경우에는, 바로 그들이 그 진화 세계를 격리시킬 것이다. 그들은 비교적 높은 영적 계층에 속하는 어떤 우주 회로들로부터 어떤 세계든지 몰아낼 수 있지만, 동력 지휘자들의 물질적 흐름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우주 회로 감독관은, **우주 동력 지휘자**가 물질 회로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영 회로에 대해서 관계를 갖는다. 이 두 계층은 상호 보완적인데, 피조물이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영과 모든 물질 회로를 함께 감시한다.

물리 에너지와 연합된 정신--곧 기계적 정신--의 국면들에 대해 동력 지휘자가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회로 감독관**은 영과 연합된 그런 정신 회로를 어느 정도 감시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층의 기능은 다른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확장되지만, 순수한 정신 회로는 그 가운데 어느 쪽 감독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두 계층은 대등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수고하는 모든 경우에, **우주 회로 감독관**은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및 그 부하들에게 종속된다.

회로 감독관들은 각 계층 안에서 완전히 똑같지만, 모두 뚜렷한 개체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우주의 전체 실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 유형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 부여하지 않은 어떤 인격 유형**을 지닌다.

너희는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알아보고 또한 알게 되겠지만, 그들과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로 감독관이며, 자신의 직무에 엄격하게 효과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독에 종속하는 회로들과 관련되는 활동을 감시하는, 그런 인격체 및 실체들과만 관계한다.

2. 인구조사 지휘자

Salvington since the early concept of your local universe, and he is a member of the personal staff of Michael of Nebadon.

24:1.12 (266.2) Whether acting in the local or higher universes, circuit supervisors direct all concerned as to the proper circuits to employ for the transmission of all spirit messages and for the transit of all personalities. In their work of circuit supervision these efficient beings utilize all agencies, forces, and personalitie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y employ the unrevealed “high spirit personalities of circuit control” and are ably assisted by numerous staffs composed of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t is they who would isolate an evolutionary world if its Planetary Prince should rebel agains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vicegerent Son. They are able to throw any world out of certain universe circuits of the higher spiritual order, but they cannot annul the material currents of the power directors.

24:1.13 (266.3)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have something of the same relationship to spirit circuits that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to material circuits. The two orders are complementary, together having the oversight of all spirit and all material circuits that are controllable and manipulatable by creatures.

24:1.14 (266.4) The circuit supervisors exercise certain oversight of those mind circuits which are spirit associated much as the power directors have certain jurisdiction over those phases of mind which are physical-energy associated — mechanical mind. In general the functions of each order are expanded by liaison with the other, but the circuits of pure mind are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neither. Neither are the two orders co-ordinate; in all their manifold labors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subject to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ir subordinates.

24:1.15 (266.5) While the circuit supervisors are entirely alike within their respective orders, they are all distinct individuals. They are truly personal beings, but they possess a type of other-than-Father-endowed personality not encountered in any other type of creature in all universal existence.

24:1.16 (266.6) Although you will recognize and know them as you journey inward towards Paradise, you will have no personal relations with them. They are circuit supervisors, and they attend strictly and efficiently to their business. They deal solely with those personalities and entities having the oversight of those activitie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circuits subject to their supervision.

2. THE CENSUS DIRECTORS

우주의 지성에 속하는 시공우주 정신이, **생각**하는 모든 피조물의 현존과 행방을 인지함에도, 온갖 우주에는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계속 계수(計數)하는 어떤 독립된 방법이 작동한다.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무한한 영**의 특별하고 완성된 창조물이며, 실존하는 그들의 숫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반사성 기법과 완전한 동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했으며, 한편 지성적 **의지**에 개인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 지휘자들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기법으로, 광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의 의지가 탄생되면 이를 즉시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앙 창조물과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의 숫자, 본성, 및 행방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낙원**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낙원**에서 지식이 내재적이며; **신격**들은 만물을 아신다.

일곱 **인구조사 지휘자**가 **하보나**에서 활동하는데, 각 **하보나** 회로 안내 세계마다 한 명이 주둔한다. 이 일곱 명, 그리고 **낙원**의 **영** 세계들에 있는 계층의 예비군을 제외한 모든 **인구조사 지휘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관할권 아래서 활동한다.

한 명의 **인구조사 지휘자**가 각 연방우주 본부의 의장이 되며, 그런 최상급 지휘자 아래에, 각 지방우주마다 수도에 한 명씩, 수천 명이 있다. **하보나** 안내 세계들과 일곱 연방우주 우두머리들을 제외하고, 이 계층에 속한 모든 인격체는 동일하다.

일곱째 연방우주에는 10만 명의 **인구조사 지휘자**가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방우주에 배정될 수 있는 자들로만 구성되며; 전체 **오르본톤** 지휘자들의 연방우주 우두머리인 **우사티아**의 개인 참모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사티아**는, 다른 연방우주 우두머리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적 의지를 등록하는 데 직접 동조되지는 않는다. 그는 **오르본톤** 우주들에 주둔하는 자신의 부하에게만 동조하며; 그래서 그는 지방 창조계 본부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를 합산하는 놀라운 어떤 인격체로서 행동한다.

우버사의 공식 기록원들은 때때로, **우사티아**의 인격 안에, 그리고 그 인격에 기록된 것이 가리키는 대로, 연방우주 상태를 그들의 기록에 남긴다. 그런 인구조사 자료는 연방우주들에 고유하며; 이 보고는, **하보나**는 물론 **낙원**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의지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에서만 인간에 대해 --의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여한

24:2.1 (266.7) Notwithstanding that the cosmic mind of the Universal Intelligence is cognizant of the presence and whereabouts of all *thinking* creatures, there is operativ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an independent method of keeping count of all *will* creatures.

24:2.2 (266.8) The Census Directors are a special and completed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y exist in numbers unknown to us. They are so created as to be able to maintain perfect synchrony with the reflectivity technique of the superuniverses, while at the same time they are personally sensitive and responsive to intelligent *will*. These directors, by a not-fully-understood technique, are made immediately aware of the birth of will in any part of the grand universe. They are, therefore, always competent to give us the number, nature, and whereabouts of all will creatures in any part of the central creation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they do not function on Paradise; there is no need for them there. On Paradise knowledge is inherent; the Deities know all things.

24:2.3 (267.1) Seven Census Directors operate in Havona, one being stationed on the pilot world of each Havona circuit. Excepting these seven and the reserves of the order on the Paradise worlds of the Spirit, all Census Directors func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24:2.4 (267.2) One Census Director presides at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while subject to such a chief director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ne on the capital of every local universe. All personalities of this order are equal excepting those on the Havona pilot worlds and the seven superuniverse chiefs.

24:2.5 (267.3) In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re are one hundred thousand Census Directors. And this number consists entirely of those assignable to local universes; it does not include the personal staff of Usatia, the superuniverse chief of all Orvonton directors. Usatia, like the other superuniverse chiefs, is not directly attuned to the registration of intelligent will. He is solely attuned to his subordinates stationed in the Orvonton universes; thus he acts as a magnificent totaling personality for their reports coming in from the capitals of the local creations.

24:2.6 (267.4) From time to time the official recorders of Uversa place on their records the status of the superuniverse as it is indicated by the registrations in and upon the personality of Usatia. Such census data is indigenous to the superuniverses; these reports are transmitted neither to Havona nor to Paradise.

24:2.7 (267.5) The Census Directors are concerned with human beings — as with other will creatures — only to the extent of recording the fact of will

다. 그들은 너희의 생애와 행위에 대한 기록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도 기록하는 인격체가 아니다. **오르본톤**에서 81,412_번인, 현재 **살빙톤**에 주둔하고 있는 **네바돈 인구조사 지휘자**는, 바로 이 순간에 이곳 **유란시아**에서 살아가는 너의 현존을 몸소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으며; 네가 의지를 지닌 피조물로서 활동하기를 멈추는 순간, 너의 죽음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것이다.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의지에 따른 첫 행동이 수행될 때, 의지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의 실존을 등록하며; 의지의 마지막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의지 피조물의 죽음을 표시한다. 어떤 고등 동물 반응에서 목격되는 부분적 의지의 출현은 **인구조사 지휘자**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지를 지닌 진정한 피조물 외에는 계수하지 않으며, **의지 작용**에만 반응한다. 그들이 의지 작용을 정확히 어떻게 등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존재들은 항상 **인구조사 지휘자**로서 존재해 왔으며, 항상 그럴 것이다. 그들은 우주 임무 가운데 어떤 다른 분야에서든지 비교적 쓸모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능에서 오류가 없으며; 결코 태만하지 않고 왜곡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불가해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인격자이며; 인식 가능한 영 현존 및 형태를 갖고 있다.

3.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우리는 **개인 조력자**들이 창조된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많음에 틀림없지만, **우버사**에는 그 기록이 없다. 그들의 업무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한 전통적 추론에 의거해서, 나는 그들의 숫자가 최대 수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한한 영**이 **개인 조력자**를 숫자에 제한 없이 창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고집한다.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들은, 오로지 **신격의 제3 인격자의 낙원** 현존을 보조하기 위해서 실존한다. **무한한 영**에게 직접 배속되고 **낙원**에 위치하더라도, 그들은 창조물 끝부분까지 번쩍이며 이리저리 움직인다. **공동 창조주**의 회로가 확장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개인 조력자**들이 **무한한 영**의 명령을 시행할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단독 사자**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우주를 횡단하지만, 그 사자들이 인격자라는 의미에서는 인격자가 아니다.

개인 조력자들은 모두 동등하고 똑같으며; 어떤 개체성의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 **공동 행위자**가 그들을 참된 인격체로 간주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들을 진짜 인격자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며; 그들은 다른 영(靈) 존재들에게 영 현존을 나타내지 않는다. **낙원**에서_기원된 존재들은, 이 **조력자**가 가까이 있음을 항상 자각하지만; 우리는 인격

function.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records of your life and its doings; they are not in any sense recording personalities. The Census Director of Nebadon, number 81,412 of Orvonton, now stationed on Salvington, is at this very moment personally conscious and aware of your living presence here on Urantia; and he will afford the records confirmation of your death the moment you cease to function as a will creature.

24:2.8 (267.6) Census Directors register the existence of a new will creature when the first act of will is performed; they indicate the death of a will creature when the last act of will takes place. The partial emergence of will observed in the reactions of certain of the higher animals does not belong to the domain of the Census Directors. They keep count of nothing but bona fide will creatures, and they are responsive to nothing but *will function*. Exactly how they register the function of will, we do not know.

24:2.9 (267.7) These beings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Census Directors. They would be comparatively useless in any other division of universe labor. But they are infallible in function; they never default, neither do they falsify. And notwithstanding their marvelous powers and unbelievable prerogatives, they are persons; they have recognizable spirit presence and form.

3.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24:3.1 (268.1) We have no authentic knowledge as to the time or manner of the creation of the Personal Aids. Their number must be legion, but it is not of record on Uversa. From conservative deductions based on our knowledge of their work, I venture to estimate that their number extends high into the trillions. We hold the opinion that the Infinite Spirit is not limited as to numbers in the creation of these Personal Aids.

24:3.2 (268.2) The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exist for the exclusive assistance of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Although attached directly to the Infinite Spirit and located on Paradise, they flash to and fro to the uttermost parts of creation. Wherever the circuits of the Conjoint Creator extend, there these Personal Aids may appear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he bidding of the Infinite Spirit. They traverse space much as do the Solitary Messengers but are not persons in the sense that the messengers are.

24:3.3 (268.3) The Personal Aids are all equal and identical; they disclose no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ity. Though the Conjoint Actor looks upon them as true personalities, it is difficult for others to regard them as real persons; they do not manifest a spirit presence to other spirit beings. Paradise-origin beings are always aware of the

체가 현존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현존하는 형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신격** 중에서 **제3 인격자**에게 더 끌려 있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영 존재 가운데 제시된 전체 계층 중에서, **개인 조력자**들은 너희가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될, 거의 유일한 존재다.

4. 부 검열관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 있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은, 일곱 연방우주의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 이사회로서, 집단으로 활동한다. **부{副} 검열관**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에 대한 **최상급 행정관**들의 권위를 개인적으로 구현한 자다. 지방 창조계의 직무에 대한 이 높은 관찰자들은, **낙원**의 **일곱 으뜸 영**과 **무한한 영**의 공동 자손이다.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70만 명이 인격화됐고, 그들의 예비 단체는 **낙원**에 주둔한다.

부 검열관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직접 감독 아래서 일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이고 능력 있는 대표자가 된다. 각 지방 창조물의 본부 세계마다 한 명의 검열관이 주둔하며, 거기에 거주하는 **합동 항존자**의 가까운 동역자다.

부 검열관들은, 오직 그 부하들, 즉 인간거주 세계로 이뤄진 지역 체계 수도에 주둔하는 **배정된 파수꾼**들로부터만 보고와 추천을 받는 반면, 오직 직속상관, 즉 관련된 연방우주의 **최상급 행정관**에게만 보고한다.

5. 배정된 파수꾼

배정된 파수꾼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협조 인격체 및 연락 대표자다. **무한한 영**이 그들을 **낙원**에서 인격화했고, 그들에게 부여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 그들은 숫자가 고정돼 있으며, 정확하게 70억 명이 실존한다.

부 검열관이 어떤 지방우주 전체에 대해 **일곱 최상급 행정관**을 대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 지방 창조물 가운데 1만 체계마다 **배정된 파수꾼**이 있는데, 그는 멀리 떨어져서 일곱 연방우주 전체 직무를 초월통제하는 최고 기관의 직접 대표자로서 행동한다. **오르본톤**의 지역 체계 정부에서 근무하는 파수꾼들은, 일곱째 연방우주 조정관인 **7_번 최상급 행정관**의 직접 권세 아래서 행동하고

proximity of these Aids; but we do not recognize a personality presence. The lack of such a presence-form undoubtedly renders them all the more serviceable to the Third Person of Deity.

24:3.4 (268.4) Of all the revealed orders of spirit beings taking origin in the Infinite Spirit, the Personal Aids are about the only ones you will not encounter on your inward ascent to Paradise.

4. THE ASSOCIATE INSPECTORS

24:4.1 (268.5)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collectively function as the administrative board of supermanagers for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Associate Inspectors are the personal embodiment of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Executives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se high observers of the affairs of the local creations are the joint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In the near times of eternity seven hundred thousand were personalized, and their reserve corps abides on Paradise.

24:4.2 (268.6) Associate Inspectors work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being their personal and powerful representatives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 inspector is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sphere of each local creation and is a close associate of the resident Union of Days.

24:4.3 (268.7) The Associate Inspectors receiv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ly from their subordinates, the Assigned Sentinels,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of inhabited worlds, while they make reports only to their immediate superior, the Supreme Executive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5. THE ASSIGNED SENTINELS

24:5.1 (268.8) The Assigned Sentinels are co-ordinating personalities and liaison representative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They were personalized on Paradise by the Infinite Spirit and were created for the specific purposes of their assignment. They are of stationary numbers, and there are exactly seven billion in existence.

24:5.2 (269.1) Much as an Associate Inspector represents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to a whole local universe, so in each of the ten thousand systems of that local creation there is an Assigned Sentinel, who acts as the direct representative of the far-distant and supreme board of supercontrol for the affairs of all seven superuniverses. The sentinels on duty in the local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영 조직에서 한 지방우주에 위임된 모든 파수꾼은, 우주 본부에 주둔하는 **부 검열관**에게 종속돼 있다.

배정된 파수꾼들은 지방 창조물 내에서 돌아다니며 근무하는데, 체계에서 체계로 옮겨간다. 그들은 대개 지방우주 시간으로 1,000년마다 바뀐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 주둔하는 가장 높은 서열의 인격체에 속하지만, 체계 직무와 관련된 심의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지역 체계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들로부터 나오는 24명의 경영인의 비공식 우두머리로서 근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 파수꾼들은 자신이 배정된 체계의 복지와 형편에 관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우주의 **부 검열관**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관여돼 있다.

배정된 파수꾼과 **부 검열관**들은, 연방우주 본부를 통해서 **최상급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련된 연방우주의 **최상급 행정관**에게만 의무를 이행하며; 그들의 활동은 **태고 항존자들**의 경영과 뚜렷이 구분된다.

최상급 행정관, **부 검열관**, 및 **배정된 파수꾼**들은, 전{全}스라빔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인격체 무리와 함께, 능률적이고 직속의 중앙집권 체계이지만, 이것은 또한 물체와 존재들로 이뤄진 광우주 전체에게 충고하고 경영상 협조하는 광범한 체계다.

6. 졸업생 안내자

한 집단으로서 **졸업생 안내자**는, 기술 교육과 영적 훈련을 제공하는 고등 대학을 후원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교육과 훈련은, 필사자가 오랜 세월 추구하는 목표, 즉: **하나님**을 만나고, 휴식한 다음에, 완전하게 된 영원한 봉사를 달성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하다. 매우 개인적인 이 존재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다. 그들은, **완결성취 단체**와 **낙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준비되도록, 상승하는 순례자들을 도와주는 **하보나** 훈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시간세계의 연방우주들로부터 온 필사 졸업생들을 안내하는 과제에 전적으로 헌신돼 있다.

내가 이 **졸업생 안내자**들의 역할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다양한 활동 개념을 물질 정신에게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이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희의 관찰 범위가 확장되고, 너희가 물질로 비교하는 족쇄에서 해방된 후

system governments of Orvonton are acting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Supreme Executive Number Seven, the co-ordinator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But in thei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l sentinels commissioned in a local universe are subordinate to the Associate Inspector stationed at universe headquarters.

24:5.3 (269.2) Within a local creation the Assigned Sentinels serve in rotation, being transferred from system to system. They are usually changed every millennium of local universe time. They are among the highest ranking personalities stationed on a system capital, but they never participate in deliberations concerned with system affairs. In the local systems they serve as the ex officio heads of the four and twenty administrators hail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but otherwise, ascending mortals have little contact with them. The sentinels are almost exclusively concerned in keeping the Associate Inspector of their universe fully informed o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and state of the systems of their assignment.

24:5.4 (269.3) Assigned Sentinels and Associate Inspectors do not report to the Supreme Executives through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responsible solely to the Supreme Executive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their activities are distinct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24:5.5 (269.4) The Supreme Executives, Associate Inspectors, and Assigned Sentinels, together with the omniaphim and a host of unrevealed personalities, constitute an efficient, direct, centralized, but far-flung system of advisory and administrative co-ordination of all the grand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6. THE GRADUATE GUIDES

24:6.1 (269.5) The Graduate Guides, as a group, sponsor and conduct the high university of technical instruction and spiritual training which is so essential to mortal attainment of the goal of the ages: God, rest, and then eternity of perfected service. These highly personal beings take their name from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ir work. They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tasks of guiding the mortal graduates from the superuniverses of time through the Havona course of instruction and training which serves to prepare the ascending pilgrims for admission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24:6.2 (269.6) I am not forbidden to undertake to tell you of the work of these Graduate Guides, but it is so ultraspiritual that I despair of being able to adequately portray to the material mind a concept of their manifold activities. On the mansion worlds, after your vision range is extended and you are

에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인간 정신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개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실체의 의미를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의 통찰력과 영적 납득 범위에서 항상 그렇게 제한 받지 않는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일곱 회로의 **하보나** 세계들을 통해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인도하는 일에 종사한다. 네가 바깥쪽 **하보나** 회로의 영접 세계에 도착할 때 반겨주는 안내자가, 하늘 회로들에서 너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너와 계속 동행하게 될 것이다. 네가 10억 세계에 머무는 동안, 무수한 다른 인격체와 연합하게 되겠지만, 너의 **졸업생 안내자**는 네가 **하보나** 진보를 끝낼 때까지 따라갈 것이고, 네가 시간세계의 마지막 수면상태, 즉 **낙원** 목표지를 향해 영원성으로 운반되는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거기서 깨어나면 **낙원 동무**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는 너를 환영하도록 예정되고, 또한 네가 **필사 완결성취 단체** 구성원으로 가입될 때까지, 너와 함께 남아 있게 될 지도 모른다.

졸업생 안내자의 숫자는 인간 정신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계속 출현한다. 그들의 기원은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다. 그들은 영원부터 실존해온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전체 세월에 걸쳐서 첫 필사 순례자가 중앙 창조물의 바깥쪽 지대로 나아갔던 까마득한 그날까지, 중앙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 안내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첫 순례자가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 도착하던 순간에, **말보리안**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첫째 **졸업생 안내자**였고, 지금은 그들의 최고 협의회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광대한 교육 조직의 지도자다.

하보나에 대한 **낙원** 기록부에는, “**졸업생 안내자**”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런 첫 기록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계층 가운데 첫째인 **말보리안**이, **하보나**를 발견한 순례자를 환영하고 가르쳤으며, 처음 체험하는 바깥쪽 회로에서부터 한 발자국씩, 그리고 한 회로씩, 모든 인격체의 **근원 및 운명**의 바로 그 현존 앞에 설 때까지 그를 안내했으며, 그 후에는 **낙원**에 이르는 영원성의 문지방을 넘어갔다.”

아득히 먼 그때, 나는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근무하는 데 배속됐었으며,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이 결국 우리 연방우주로부터 **하보나**에 도착할 것을 확신하면서 즐거워했다. 우리는, 공간에 있는 진화 피조물이 **낙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워 왔으며, 첫 순례자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 전례 없는 감격스러움이 하늘 궁전(宮殿)을 휩쓸었다.

freed from the fetters of material comparisons, you can begin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ose realities which “eye cannot see nor ear hear, and which have never entered the concept of human minds,” even those things which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such eternal verities.” You are not always to be so limited in the range of your vision and spiritual comprehension.

24:6.3 (270.1) The Graduate Guides are engaged in piloting the pilgrims of time through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worlds. The guide who greets you upon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 of the outer Havona circuit will remain with you throughout your entire career on the heavenly circuits. Though you will associate with countless other personalities during your sojourn on a billion worlds, your Graduate Guide will follow you to the end of your Havona progression and will witness your entrance into the terminal slumber of time, the sleep of eternity transit to the Paradise goal, where, upon awakening, you will be greeted by the Paradise Companion assigned to welcome you and perhaps to remain with you until you are initiated as a member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24:6.4 (270.2) The number of Graduate Guides is beyond the power of human minds to grasp, and they continue to appear. Their origin is something of a mystery. They have not existed from eternity; they mysteriously appear as they are needed. There is no record of a Graduate Guide in all the realms of the central universe until that far-distant day when the first mortal pilgrim of all time made his way to the outer belt of the central creation. The instant he arrived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circuit, he was met with friendly greetings by Malvorian, the first of the Graduate Guides and now the chief of their supreme council and the director of their vast educational organization.

24:6.5 (270.3) On the Paradise records of Havona, in the section denominated “Graduate Guides,” there appears this initial entry:

24:6.6 (270.4) “And Malvorian, the first of this order, did greet and instruct the pilgrim discoverer of Havona and did conduct him from the outer circuits of initial experience, step by step and circuit by circuit, until he stood in the very presence of the Source and Destiny of all personality, subsequently crossing the threshold of eternity to Paradise.”

24:6.7 (270.5) At that far-distant time I was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and we all rejoiced in the assurance that, eventually, pilgrims from our superuniverse would reach Havona. For ages we had been taught that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space would attain Paradise, and the thrill of all time swept through the heavenly courts when the first pilgrim actually arrived.

하보나를 찾아낸 이 순례자의 이름은 **그랜한**이며, 1_번 연방우주에 있는 1,131_번 지방우주의 62_번 성좌에 있는 84_번 체계의 341_번 행성에서 나왔다. 그의 도착은, 온갖 우주의 방송 업무를 설립하는 신호가 됐다. 그때까지는 연방우주와 지방우주들의 방송만 작동돼 왔지만, **하보나**의 입구에 **그랜한**다가 도착했다는 발표는, “영광스런 공간 보고서들”이 게시됨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은, 상승하는 실존의 목적지에 들어가려는 첫 진화 존재가 **하보나**에 도착했음을, 첫 우주 방송이 보고했기 때문이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서 졸업하는 순례자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한다. 그리고 네가 생존하고 상승하도록 고안된, 확실하고 전부 완성된 계획을 네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 이 고귀한 존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7.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진화는 중앙우주의 규칙이 아니지만, **졸업생 안내자**들이, 다른 계층의 중앙우주 피조물, 즉 **하보나 하인**{下人}들 중에서 완전하게 됐거나 더 체험을 쌓은 일원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그런 너그러운 동정심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졸업생 안내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살피는 **하보나 하인**으로서 그들이 연방우주 영역들에서 실제로 봉사함으로써 이 문화를 획득해 왔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 관점이 틀리다면, 선배 하인들 또는 더 많은 체험을 가진 하인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어떤 하인은 그전에 가졌던 그런 여러 사명을 수행하면서 연방우주 임무를 위해 **하보나**에서 오랫동안 떠나있게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낙원 중심 광채**와 “개인적 접촉”을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빛나는 인격자**들에게 포용될 것이고, 그의 영 동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라지고, 그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연방우주 봉사에서 돌아오면, **하보나 하인**은 수많은 신성한 포용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단지 고양된 하인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빛나는 포용을 체험하는 것은, 하인이 반드시 **졸업생 안내자**로 변환돼야 함을 뜻하지는 않지만, 신성한 포용을 성취한 그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은 그 영역의 봉사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고등{高等}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연속된 기록이 보인다:

24:6.8 (270.6) The name of this pilgrim discoverer of Havona is *Grandfanda*, and he hailed from planet 341 of system 84 in constellation 62 of local universe 1,131 situated in superuniverse number one. His arrival was the sign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roadcast servic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tofore only the broadcasts of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had been in operation, but the announcement of the arrival of Grandfanda at the portals of Havona signalized the inauguration of the “space reports of glory,” so named because the initial universe broadcast reported the Havona arrival of the first of the evolutionary beings to attain entrance upon the goal of ascendant existence.

24:6.9 (270.7) Graduate Guides never leave the Havona worlds; they are dedicated to the service of the graduate pilgrims of time and space. And you will sometime meet these noble beings face to face if you do not reject the certain and all-perfected plan designed to effect your survival and ascension.

7. ORIGIN OF THE GRADUATE GUIDES

24:7.1 (270.8) Though evolution is not the order of the central universe, we believe that the Graduate Guides are the perfected or more experienced members of another order of central universe creatures, the Havona Servitals. Graduate Guides show such a breadth of sympathy and such a capacity for understanding the ascendant creatures that we are convinced they have gained this culture by actual service in the superuniverse realms as the Havona Servitals of universal ministry. If this view is not correct, how then can we account for the continuous disappearance of the senior or more experienced servitals?

24:7.2 (271.1) A servital will be long absent from Havona on superuniverse assignment, having been on many such missions previously, will return home, be granted the privilege of “personal contact” with the Paradise Central Shining, will be embraced by the Luminous Persons, and disappear from the recognition of his spirit fellows, never more to reappear among those of his kind.

24:7.3 (271.2) On returning from superuniverse service, a Havona Servital may enjoy numerous divine embraces and emerge therefrom merely an exalted servital. Experiencing the luminous embrace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that the servital must translate into a Graduate Guide, but almost one quarter of those who achieve the divine embrace never return to the service of the realms.

24:7.4 (271.3) There appears on the high records a succession of such entries as this:

“그리고 **수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보나**의 842,842,682,846,782_번 하인이 연방우주 봉사에서 돌아왔고, **낙원**에서 영접 받았으며, **아버지**를 알았고, 신성한 품으로 들어갔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나타날 때, 그런 하인의 생애가 마감된다. 그러나 (너희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짧은) 꼭 세 순간 내에 새로 태어난 **졸업생 안내자**가, “자동으로” **하보나** 우주 외부 회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이동 중에 있는 그들로 인해 생기는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면, **졸업생 안내자** 숫자는 사라진 하인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졸업생 안내자가 **하보나 하인**으로부터 진화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 안내자들 및 관련된 하인들이 어김없이 그런 비범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다. 별도의 계층으로 생각되는 이 존재들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방법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호 헌신을 목격하는 일은 기분 좋게 하고 영감을 준다.

일곱 으뜸 영 및 관련된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는 각각, **지존하신 분**이 아직 개인적으로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정신 잠재력과 동력 잠재력의 개인 저장소{貯藏所}다. 그리고 이 **낙원** 동역자들이 **하보나 하인**을 창조하려고 협력할 때, 후자{後者}는 내재적으로 **지존성**의 어떤 국면과 관계한다. 그래서 **하보나 하인**들은 실제로 시_공간 영역의 어떤 진화 잠재력이 완전한 중앙우주에 반사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한 하인{下人}이 변형과 재_창조를 겪을 때 나타난다. **지존자**를 위해 틀림없이 행동하는 **무한한 영**의 의지에 반응해서 이 변형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는다. **지존하신 분**이 **졸업생 안내자**들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존재들을 실존하게 한 그 진행사항에, 체험적 **신격**이 어떤 면에서 관련돼 있다고 추측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지금 횡단하고 있는 **하보나**는, **그랜한다** 시대 이전의 중앙우주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보나** 회로들에 필사 상승자들이 도착함으로써, 중앙의 신성한 창조 조직 내에 전면적 변경이 개시됐는데, 이런 변경은, 체험하는 자녀들 가운데 첫 자녀가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도착한 것에 반응해서, **지존하신 분**이--곧 진화 피조물의 **하나님**이-- 개시했다. **졸업생 안내자**들의 출현은, 3차 최고스라빔의 창조와 함께, **지존자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했음을 암시한다.

24:7.5 (271.4) “And servital number 842,842,682,846,782 of Havona, named Sudna, came over from the superuniverse service, was received on Paradise, knew the Father, entered the divine embrace, and is not.”

24:7.6 (271.5) When such an entry appears on the records, the career of such a servital is closed. But in just three moments (a little less than three days of your time) a newborn Graduate Guide “spontaneously” appears on the outer circuit of the Havona universe. And the number of Graduate Guides, allowing for a slight difference, due no doubt to those in transition, exactly equals the number of vanished servitals.

24:7.7 (271.6) There is an additional reason for supposing the Graduate Guides to be evolved Havona Servitals, and that is the unfailing tendency of these guides and their associated servitals to form such extraordinary attachments. The manner in which these supposedly separate orders of beings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one another is wholly inexplicable. It is refreshing and inspiring to witness their mutual devotion.

24:7.8 (271.7)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 associated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respectively, are the personal repositories of the mind potential and of the power potential of the Supreme Being which he does not, as yet, operate personally. And when these Paradise associates collaborate to create the Havona Servitals, the latter are inherently involved in certain phases of Supremacy. Havona Servitals are thus, in actuality, a reflection in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of certain evolutionary potentialities of the time-space domains, all of which is disclosed when a servital undergoes transformation and re-creation. We believe that this transformation takes place in response to the will of the Infinite Spirit, undoubtedly acting in behalf of the Supreme. Graduate Guides are not created by the Supreme Being, but we all conjecture that experiential Deity is in some way concerned in those transactions which bring these beings into existence.

24:7.9 (271.8) The Havona now traversed by ascending mortals differs in many respects from the central universe as it was before the times of Grandfanda. The arrival of mortal ascenders on the Havona circuits inaugurated sweeping modifications in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and divine creation, modifications undoubtedly initiated by the Supreme Being — the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 in response to the arrival of the first of his experiential children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appearance of the Graduate Guides, together with the creation of the tertiary supernaphim, is indicative of these performances of God the Supreme.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 했음]

24:7.10 (271.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25편. 공간의 사자 무리

⇨ 024

유랜시아 책

026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5편
공간의 사자 무리

섹션

소개

1. 하보나 하인
2. 우주 화해자
3. 화해자의 멀리_도달하는 봉사
4. 법해석 고문
5. 낙원의 기록 관리인
6. 천상의 기록원
7. 모론시아 동무
8. 낙원 동무

PAPER 25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Havona Servitals
2. The Universal Conciliators
3. The Far-Reaching Service of Conciliators
4. Technical Advisers
5. The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6. The Celestial Recorders
7. The Morontia Companions
8. The Paradise Companions

소개

무한한 영 계보에서 중간에 위치한 자는 **공간의 사자{使者} 무리**다.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고등 인격체들 및 돌보는 영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사자 무리는 다음과 같은 천상의 존재 계층들을 포함한다:

1. **하보나 하인.**
2. **우주 화해자.**
3. **법해석 고문.**
4. **낙원의 기록 관리인.**
5. **천상의 기록원.**
6. **모론시아 동무.**
7. **낙원 동무.**

열거된 일곱 집단 중에서, 오직 셋만이--곧 하인, 화해자, 및 **모론시아 동무**만이-- 그렇게 창조됐으며; 나머지 넷은 천사 계층의 달성 수준들을 대표한다. 타고난 본성과 달성된 신분에 따라서, 사자 무리는 온갖 우주에서 다양하게 이바지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배정받은 영역을 통치하는 자

INTRODUCTION

25:0.1 (273.1) RANKING intermediately in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are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These versatile beings function as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higher personalities and the ministering spirits. The messenger hosts include the following orders of celestial beings:

- 25:0.2 (273.2) 1. Havona Servitals.
- 25:0.3 (273.3) 2. Universal Conciliators.
- 25:0.4 (273.4) 3. Technical Advisers.
- 25:0.5 (273.5) 4.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 25:0.6 (273.6) 5. Celestial Recorders.
- 25:0.7 (273.7) 6. Morontia Companions.
- 25:0.8 (273.8) 7. Paradise Companions.

25:0.9 (273.9) Of the seven groups enumerated, only three — servitals, conciliators, and Morontia Companions — are created as such; the remaining four represent attainment levels of the angelic orders. In accordance with inherent nature and attained status, the messenger hosts

들의 지휘 아래에 있다.

1. 하보나 하인

하인이라고 부르지만, 중앙우주의 이 “중도 피조물”은, 그 단어가 갖는 비천한 의미의 종들이 아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시시한 업무가 아니며; 모든 봉사는 신성시되고 기분 좋은 일이며; 뿐만 아니라, 높은 계층의 존재가 낮은 계층의 실존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는다.

하보나 하인들은 **일곱 으뜸 영** 및 그 동역자인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의 공동 창작품이다. 이런 창조적 협동은, 진화 우주에 있는 이중 계층의 긴 재생산 목록을 위한 원형(原型)에 가장 가까운데, 위로는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접촉으로 생기는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에서, 아래로는 **유란시아** 같은 세계들에서 성교(性交)로 자식을 낳는 것까지 이른다.

하인의 숫자는 엄청나며, 항상 더 창조되고 있다. **으뜸 영**들과 **지존 동력 지휘자**들의 모임이 있는 후에, **낙원**의 가장 북쪽 구역에 있는 그들의 공동 지역에서 셋째 순간에 하인이 1,000명씩 무리지어 나타난다. 넷째 하인마다, 다른 경우들보다 더 물리적 유형이며; 다시 말하자면, 각 1,000명마다, 750명은 영 유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250명은 본성적으로 반(半)물리적이다. 이 넷째 피조물은 어느 정도 물리적 존재 계층에 해당되는데(**하보나** 의미로는 물질적인데), **으뜸 영**보다는 물리적 동력 지휘자를 더 닮는다.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격체의 관계에서 영적 존재가 물질 존재보다 우세하며; **하보나 하인**의 생산에서는 영이 우세한 법칙이 지배하며; 한 명의 반물리적 존재마다 세 영적 존재가 고정된 비율로 생산된다.

새롭게 창조된 하인은, 새롭게 출현하는 **졸업생 안내자**들과 함께 모두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을 일곱 **하보나** 회로 각각에서 선배(先輩) 안내자들이 계속 지도한다. 하인들은 그때 가장 적합한 활동에 배정되며, 그 후로 그들은 두 유형이—곧 영적 및 반물리적—이 되는데,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고등 집단, 즉 영(靈) 집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봉사에, 그리고 **일곱 으뜸 영**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 본부 구체를 돌고 있는 연구{研究} 세계들에서 근무하도록, 때때로 큰 무리를 지어 파송되는데, 그 세계들은 **하보나** 회로들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혼들의 최종 훈련 및 영적 문화에 헌신돼 있다. 영 하인들 및 더 물리적

variously serv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always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ose who rule the realms of their assignment.

1. THE HAVONA SERVITALS

25:1.1 (273.10) Though denominated servitals, these “midway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not servants in any menial sense of the word. In the spiritual world there is no such thing as menial work; all service is sacred and exhilarating; neither do the higher orders of beings look down upon the lower orders of existence.

25:1.2 (273.11) The Havona Servitals are the joint creative work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ir associates,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This creative collaboration comes the nearest to being the pattern for the long list of reproductions of the dual order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extending from the creation of a Bright and Morning Star by a Creator Son-Creative Spirit liaison down to sex procreation on worlds like Urantia.

25:1.3 (273.12) The number of servitals is prodigious, and more are being created all the time. They appear in groups of one thousand on the third moment following the assembly of the Master Spirits and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t their joint area in the far northerly sector of Paradise. Every fourth servital is more physical in type than the others; that is, out of each thousand, seven hundred and fifty are apparently true to spirit type, but two hundred and fifty are semiphysical in nature. These *fourth creatures* are somewhat on the order of material beings (material in the Havona sense), resembling the physical power directors more than the Master Spirits.

25:1.4 (274.1) In personality relationships the spiritual is dominant over the material, even though it does not now so appear on Urantia; and in the production of Havona Servitals the law of spirit dominance prevails; the established ratio yields three spiritual beings to one semiphysical.

25:1.5 (274.2) The newly created servitals, together with newly appearing Graduate Guides, all pass through the courses of training which the senior guides continuously conduct on each of the seven Havona circuits. Servitals are then assigned to the activities for which they are best adapted, and since they are of two types — spiritual and semiphysical — there are few limits to the range of work these versatile beings can do. The higher or spirit groups are assigned selectively to the service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nd to the work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large numbers they are dispatched, from time to time, to serve on the study worlds encircling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even

인 그 동료들은, **하보나**를 달성하고 **낙원**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다양한 계층의 상승하는 피조물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졸업생 안내자**들의 보좌관 및 동역자로 지명되기도 한다.

하보나 하인과 **졸업생 안내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초월적으로 헌신하고 감동적인 애정을 서로에게 나타내는데, 그 애정은 영적인 반면, 너희는 인간이 사랑하는 현상과 비교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하인들이 중앙우주 한계 밖으로 사명을 띠고 파송될 때 그렇게 종종 발생하듯이, 안내자들로부터 하인들이 분리될 때 신성한 애절함이 있지만; 그들은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떠난다. 고귀한 의무에 대한 만족스런 기쁨이 영적 존재들의 감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충실하게 수행되는 신성한 의무를 의식(意識)하는 마당에, 슬픔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상승하는 혼이 **최상급 재판관** 앞에 설 때,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결정은, 물질적 성공 또는 양적 성취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 고등 법정을 통해서 올려 퍼지는 판결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으니; 우주 실체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연방우주 봉사에 임할 때, **하보나 하인**들은, 일반 특권 및 특별한 영 특권 면에서 자신이 가장 닮은 **으뜸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에 항상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 수도를 돌고 있는 교육 세계들에서만 근무하며, **우버사**의 최종 보고서는, 490개 위성(衛星)에서 거의 1,380억 명의 하인이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초월_대학들을 포함하는 이 교육 세계의 업무와 연결돼 있는, 끝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너희의 동무가 되며; 너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성 영역들을 향해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너희가 결국 졸업하게 되는 그 실체성과 확실성을 너희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다음 생애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피조물을 돌보는 예비 체험을 획득하는데, **하보나** 회로들에서 그 체험은 **졸업생 안내자**들의 동역자로서 또는 **졸업생 안내자** 자신으로서--곧 변형된 하인으로서-- 나중에 하는 일에 매우 유익하다.

2. 우주 화해자

창조된 각각의 **하보나 하인**을 위해서, 각 연

superuniverses, the worlds devoted to the final training and spiritual culture of the ascending souls of time who are preparing for advancement to the circuits of Havona. Both spirit servitals and their more physical fellows are also designated assistants and associates of the Graduate Guides in helping and instructing the various orders of ascending creatures who have attained Havona, and who seek to attain Paradise.

25:1.6 (274.3)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Graduate Guides manifest a transcendent devotion to their work and a touching affection for one another, an affection which, while spiritual, you could only understand by comparison with the phenomenon of human love. There is divine pathos in the separation of the servitals from the guides, as so often occurs when the servitals are dispatched on missions beyond the limits of the central universe; but they go with joy and not with sorrow. The satisfying joy of high duty is the eclipsing emotion of spiritual beings. Sorrow cannot exist in the face of the consciousness of divine duty faithfully performed. And when man's ascending soul stands before the Supreme Judge, the decision of eternal import will not be determined by material successes or quantitative achievements; the verdict reverberating through the high courts declare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essentials; you shall be made ruler over universe realities."

25:1.7 (274.4) On superuniverse service the Havona Servitals are always assigned to that domain presided over by the Master Spirit whom they most resemble in general and special spirit prerogatives. They serve only on the educational worlds surrounding the capital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 last report of Uversa indicates that almost 138 billion servitals were ministering on its 490 satellites. They engage in an endless variety of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these educational worlds comprising the superuniversitie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Here they are your companions; they have come down from your next career to study you and to inspire you with the reality and certainty of your eventual graduation from the universes of time to the realms of eternity. And in these contacts the servitals gain that preliminary experience of ministering to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which is so helpful in their subsequent work on the Havona circuits as associates of the Graduate Guides or — as translated servitals — as Graduate Guides themselves.

2. THE UNIVERSAL CONCILIATORS

25:2.1 (275.1) For every Havona Servital created,

방우주에 한 명씩, 일곱 **우주 화해자**{和解者}가 존재하게 된다. 이 독창적 규정은, **낙원**에서 발생하는 처리사항에 반사{反射}함으로 반응하는 어떤 분명한 연방우주 기법을 필요로 한다.

일곱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서는 **일곱 으뜸 영**의 일곱 반사가 작용한다. 이 **반사하는 영**들의 본성을 물질 정신에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체이지만; 연방우주 집단의 각 요원{要員}은 여전히 **일곱 으뜸 영** 가운데 단 하나만을 완전하게 반사한다. 그리고 **하보나 하인** 가운데 어떤 집단을 창조할 목적으로 **으뜸 영**들이 힘 지휘자들과 스스로 연합할 때마다, 각 연방우주 집단에서 **반사하는 영** 가운데 하나에 동시 집중이 일어나고, 같은 숫자의 **우주 화해자**가 연방창조물들의 본부 세계에 다 자란 모습으로 즉시 나타난다. 하인들의 창조에서 만일 **7_번 으뜸 영**이 주도권{主導權}을 잡아야 한다면, 오직 일곱째 계층의 **반사하는 영**만이 화해자들을 내포하게 될 것이며; **오르본톤**을 닮은 1,000명의 하인이 창조됨과 동시에, 1,000명의 일곱째 계층 화해자가 각 연방우주 수도{首都}에 나타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으뜸 영**들의 칠중{七重} 본성을 반사하면서, 각 연방우주에서 근무하는 창조된 일곱 계층의 화해자가 출현한다.

낙원 이전{以前} 신분을 지닌 화해자는 연방우주들 사이를 오가며 근무하지는 않는데, 자신이 태어난 창조물 구획에 제한돼 있다. 그러므로 창조된 각 계층 중에서 7분의 1을 포함하는 각 연방우주 단체마다, **으뜸 영**들 가운데 다른 분들을 제외할 정도로 한 분의 영향 아래서 매우 긴 기간을 보내는데, 일곱 분 전체가 연방우주 수도{首都}들에서 **반사**되는 반면, 오직 한 분만이 각 연방창조물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곱 연방창조물 각각에는, 그 운명을 관장하는 **으뜸 영**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각 연방우주는, 감독하는 **으뜸 영**의 본성과 성품을 반사하는 어떤 거대한 거울처럼 되며, 또한 이 모든 것은, **창조적 어머니 영**들의 현존과 기능으로 말미암아 각 하위 지방우주에서 더욱 지속된다. 그런 환경이 진화 성장에 너무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우주 이후 생애에서 화해자들은 집단으로 마흔아홉 가지의 체험적 관점 또는 통찰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각각 원활하지 못하고 --따라서 미완성이지만-- 모두가 서로 보완하며, 또한 함께 **지존성** 궤도를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우주 화해자들은 각 연방우주에서 자신들이 기묘하게 날 때부터 네 명씩 집단으로 갈라져 있

seven Universal Conciliators are brought into being, one in each superuniverse. This creative enactment involves a definite superuniverse technique of reflective response to transactions taking place on Paradise.

25:2.2 (275.2)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function the seven reflec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difficult to undertake to portray the natures of these Reflective Spirits to material minds. They are true personalities; still each member of a superuniverse group is perfectly reflective of just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very time the Master Spirits associate themselves with the power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group of Havona Servitals, there is a simultaneous focalization upon one of the Reflective Spirits in each of the superuniverse groups, and forthwith and full-fledgedly an equal number of Universal Conciliators appear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creations. If, in the creation of servitals, Master Spirit Number Seven should take the initiative, none but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eventh order would become pregnant with conciliators; and concurrently with the creation of one thousand Orvontonlike servitals, one thousand of the seventh-order conciliators would appear on each superuniverse capital. Out of these episodes, reflecting the sevenfold nature of the Master Spirits, arise the seven created orders of conciliators serving in each superuniverse.

25:2.3 (275.3) Conciliators of pre-Paradise status do not serve interchangeably between superuniverses, being restricted to their native segments of creation. Every superuniverse corps, embracing one seventh of each created order, therefore spends a very long time under the influence of one of the Master Spirits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s, for, while all seven are *reflected* on the superuniverse capitals, only one is *dominant* in each supercreation.

25:2.4 (275.4)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is actually pervaded by that one of the Master Spirits who presides over its destinies. Each superuniverse thus becomes like a gigantic mirror reflecting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and all of this is further continued in every subsidiary local universe by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the Creative Mother Spirits. The effect of such an environment upon evolutionary growth is so profound that in their postsuperuniverse careers the conciliators collectively manifest forty-nine experiential viewpoints, or insights, each angular — hence incomplete — but all mutually compensatory and together tending to encompass the circle of Supremacy.

25:2.5 (275.5) In each superuniverse the Universal Conciliators find themselves strangely and innately

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각 집단마다, 셋은 영 인격체이고, 하나는 하인 중에서 넷째 피조물처럼 약간의 물질 존재다. 이 4인조가 한 회유 위원회를 이루고,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재판관_중재인.** 그 집단의 법적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능하다고, 다른 세 **화해자**가 만장일치로 지명한 자.

2. **영 옹호자.** 회유 위원회가 판결하도록 배정된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인격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재판관_중재인에게서 지명 받은 자.

3. **신성한 집행인.** 그 영역의 물질 존재와 접촉하기에, 그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에 내재적 본성이 적합한 화해자. 넷째 피조물이므로--곧 유사(類似)_물질 존재이므로, 필사 인종의 짧은 시야로도 신성한 집행인들을 거의 볼 수 있지만, 완전치는 않다.

4. **기록원.** 그 위원회의 나머지 요원은, 자동으로 기록원, 즉 법정 서기(書記)가 된다. 그는 지방우주 기록을 위해, 그리고 연방우주 문서를 위해, 모든 자료가 잘 준비되도록 확인한다. 그 위원회가 어떤 진화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세 번째 보고서가, 집행인의 보고를 받아, 체계 정부 사법부의 물리적 기록을 위해 준비된다.

심리 중에 있는 위원회는 세 명이 집단을 이뤄서 작동하는데, 이것은 옹호자가 재판 중에는 분리돼 있고 청문회의 결론 부분에서만 판결문 작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때로 3인조 심판관이라고 불린다.

화해자들은 온갖 우주의 순조로운 운행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들은 스랍보다 3배 속도 비율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여러 세계의 이동 법정, 즉 사소한 어려움을 빨리 판결하도록 헌신된 위원회로서 이바지한다. 기동력 있고 매우 공정한 이 위원회가 없었다면, 구체의 법정은 그 영역의 사소한 오해들로 가득차서 소망을 잃을 것이다.

이 3인조 심판관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으며; 혼, 즉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영원할 가능성은, 그들의 행동으로 위험에 처하는 법이 없다. 화해자들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일시적 실존과 시공우주 복지를 벗어나는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일단 받아들였을 때,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항상 만장일치이며; 재판관_중재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없다.

segregated into groups of four, associations in which they continue to serve. In each group, three are spirit personalities, and one, like the fourth creatures of the servitals, is a semimaterial being. This quartet constitutes a conciliating commission and is made up as follows:

25:2.6 (275.6) 1. *The Judge-Arbiter.* The one unanimously designated by the other three as the most competent and best qualified to act as judicial head of the group.

25:2.7 (275.7) 2. *The Spirit-Advocate.* The one appointed by the judge-arbiter to present evidence and to safeguard the rights of all personalities involved in any matter assigned to the adjudication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

25:2.8 (276.1) 3. *The Divine Executioner.* The conciliator qualified by inherent nature to make contact with the material beings of the realms and to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commission. Divine executioners, being fourth creatures — quasi-material beings — are almost, but not quite, visible to the short-range vision of the mortal races.

25:2.9 (276.2) 4. *The Recorder.* The remaining member of the commission automatically becomes the recorder, the clerk of the tribunal. He makes certain that all records are properly prepared for the archives of the superuniverse and for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If the commission is serving on an evolutionary world, a third report, with the assistance of the executioner, is prepared for the physical records of the system government of jurisdiction.

25:2.10 (276.3) When in session a commission functions as a group of three since the advocate is detached during adjudication and participates in the formulation of the verdict only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Hence these commissions are sometimes called referee trios.

25:2.11 (276.4) The conciliators are of great value in keep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running smoothly. Traversing space at the seraphic rate of triple velocity, they serve as the traveling courts of the worlds, commissions devoted to the quick adjudication of minor difficulties. Were it not for these mobile and eminently fair commissions, the tribunals of the spheres would be hopelessly overspread with the minor misunderstandings of the realms.

25:2.12 (276.5) These referee trios do not pass upon matters of eternal import; the soul, the eternal prospects of a creature of time, is never placed in jeopardy by their acts. Conciliators do not deal with questions extending beyond the temporal existence and the cosmic welfare of the creatures of time. But when a commission has once accepted jurisdiction of a problem, its rulings are final and always unanimous; there is no appeal

from the decision of the judge-arbiter.

3. 화해자의 멀리_도달하는 봉사

화해자들은 그들의 연방우주 수도에 집단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들의 1차 예비 단체가 거기에 주둔한다. 그들의 2차 예비군은 지방우주 수도에 주둔한다. 비교적 젊고 체험을 적게 한 위원들은, **유란시아** 같은 낮은 세계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성숙한 체험을 획득한 후에, 더 큰 문제를 판결하도록 파견된다.

화해자 계층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다. 지혜와 판결에 오류가 없더라도, 그들은 명백한 신뢰성을 지니며 어김없이 충실하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기원되고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우주 봉사 수준을 거쳐서 진보한다:

1. **세계들에대한 화해자.** 개별 세계를 감독하는 인격체들이, 기존 환경 하에서 적절한 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난처하게 되고 실제로 벽에 부딪칠 때에는 언제나, 그리고 문제가 그 영역에서 정적으로 열릴는 법정 앞으로 가져갈 만큼 중요성이 없을 경우에, 그때 다투는 편마다 하나씩, 두 인격체의 청원을 받아서, 화해시키는 위원회(委員會)가 즉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영 및 사법 문제가 심리와 판결을 위해 화해자들에게 부여될 때, 그들은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청취하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그들의 권위에 어떤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위원회가 정해진 어떤 시점에서 기록을 중단하고, 그들의 의견에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 전체를 그 영역의 더 높은 법정으로 보낼 만큼, 가끔 문제가 너무 진전되기도 한다.

그 위원들의 결정은 행성 기록부에 기록되고, 필요하다면 신성한 집행인이 그 결정을 집행한다. 그의 능력은 매우 크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그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다. 신성한 집행인들은, 마땅히 왜야만 할 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노력하게 조종하는 자다. 그들의 업무는 때로 그 영역의 명백한 복지를 위해 수행되지만,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연 법칙 또는 그 영역의 정해진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법령을 집행함에도, 그들은 흔히 체계 경영에 대한 더 높은 법률에 따라서 자

3. THE FAR-REACHING SERVICE OF CONCILIATORS

25:3.1 (276.6) Conciliators maintain group headquarters on the capital of their superuniverse, where their primary reserve corps is held. Their secondary reserves are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The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commissioners begin their service on the lower worlds, worlds like Urantia, and are advanced to the adjudication of greater problems after they have acquired ripper experience.

25:3.2 (276.7) The order of conciliators is wholly dependable; not one has ever gone astray. Though not infallible in wisdom and judgment, they are of unquestioned reliability and unerring in faithfulness. They take origin on the headquarters of a superuniverse and eventually return thereto, advancing through the following levels of universe service:

25:3.3 (276.8) 1. *Conciliators to the Worlds.* Whenever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of the individual worlds become greatly perplexed or actually deadlocked concerning the proper procedure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and if the matter is not of sufficient importance to be brought before the regularly constituted tribunals of the realm, then, upon the receipt of a petition of two personalities, one from each contention, a conciliating commission will begin to function forthwith.

25:3.4 (277.1) When these administrative and jurisdictional difficulties have been placed in the hands of the conciliators for study and adjudication, they are supreme in authority. But they will not formulate a decision until all the evidence has been heard, and there is absolutely no limit to their authority to call witnesses from anywhere and everywhere. And while their decisions may not be appealed, sometimes matters so develop that the commission closes its records at a given point, concludes its opinions, and transfers the whole question to the higher tribunals of the realm.

25:3.5 (277.2) The commissioners' decisions are placed on the planetary records and, if necessary, are put into effect by the divine executioner. His power is very great, and the range of his activities on an inhabited world is very wide. Divine executioners are masterful manipulators of that which is in the interests of that which ought to be. Their work is sometimes carried out for the apparent welfare of the realm, and sometimes their act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re difficult of explanation. Though executing decrees

신의 비범한 일을 수행하고 화해자들의 명령을 집행한다.

2. 체계 본부에대한 화해자. 이 4인 위원회는 체계 본부에서 근무하기 위해 진화 세계의 봉사로부터 진급된다. 그들은 여기서 할 일이 많으며, 사람, 천사들, 및 기타 영 존재들의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된다. 3인조 심판관은 개인의 차이보다는 집단의 주장에, 그리고 서로 다른 피조물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에 더 관심이 있으며; 체계 본부에서는 영적 존재 및 물질적 존재뿐 아니라, **물질 아들** 같은 혼합된 유형도 살고 있다.

창조주들이, 선택 능력을 지닌 진화하는 개인들을 실존하게 만드는 순간, 신성한 완전성으로 순조롭게 작업하던 것으로부터 그 순간에 이탈{離脫}하게 되며; 오해가 분명히 생기고, 이런 정직한 관점의 차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돼야 한다. 온전히-지혜롭고 전능{全能}한 **창조주**들이, **하보나**와 똑같이 완전한 지방우주를 만들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어떤 화해 위원회도 작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조주**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이가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우주들을 만들어 왔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차이를 수습하고 이 모든 외관상 혼란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와 수단을 제공해 왔다.

3. 성좌 화해자. 화해자들은 체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부터 성좌{星座}의 문제를 판결하는 일로 승진하는데,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100개의 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어려움을 맡는다. 성좌 본부에서 형성되는 문제들이 그들의 관찰권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예비 서술문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체계에서 체계로 바쁘게 계속 움직인다. 그 주장이 정직하다면, 그 어려움이 진정한 의견 차이와 정직한 관점의 다양성으로부터 생겨난다면, 아무리 소수 인격자가 관련됐더라도, 오해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화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4. 지방우주담당 화해자. 한 우주에서 비교적 큰 이런 일을 하면서, 위원들은 **멜기세덱**과 **집정관 아들**들에게, 그리고 100개의 성좌에 대한 협조와 경영에 관여하는 성좌 통치자 및 인격체 무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 속한 다른 계층의 스라빔 및 다른 거주민들 역시, 3

in defiance of neither natural law nor the ordained usages of the realm, they do oftentimes effect their strange doings and enforce the mandates of the conciliator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laws of the system administration.

25:3.6 (277.3) **2. Conciliators to the System Headquarters.** From service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se commissions of four are advanced to duty on a system headquarters. Here they have much work to do, and they prove to be the understanding friends of men, angels, and other spirit beings. The referee trios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personal differences as with group contentions and with misunderstandings arising between different orders of creatures; and on a system headquarters there live both spiritual and material beings, as well as the combined types, such as the Material Sons.

25:3.7 (277.4) The moment the Creators bring into existence evolving individuals with the power of choice, that moment a departure is made from the smooth working of divine perfection; misunderstandings are certain to arise, and provision for the fair adjustment of these honest differences of viewpoint must be made. We should all remember that the all-wise and all-powerful Creators could have made the local universes just as perfect as Havona. No conciliating commissions need function in the central universe. But the Creators did not choose in their all-wisdom to do this. And while they have produced universes which abound in differences and teem with difficulties, they have likewise provided the mechanisms and the means for composing all these differences and for harmonizing all this seeming confusion.

25:3.8 (277.5) **3. The Constellation Conciliators.** From service in the systems the conciliators are promoted to the adjudication of the problems of a constellation, taking up the minor difficulties arising between its one hundr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Not many problems developing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all under their jurisdiction, but they are kept busy going from system to system gathering evidence and preparing preliminary statements. If the contention is honest, if the difficulties arise out of sincere differences of opinion and honest diversity of viewpoints, no matter how few persons may be involved, no matter how apparently trivial the misunderstanding, a conciliating commission can always be had to pass upon the merits of the controversy.

25:3.9 (277.6) **4. Conciliators to the Local Universes.** In this larger work of a universe the commissioners are of great assistance to both the Melchizedeks and the Magisterial Sons and to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the hosts of personalities concerned with the co-ordination and

인조 심판관의 도움과 결정을 이용한다.

어떤 체계, 성좌, 또는 우주의 상세한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의 본질을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움이 조정되지만,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는 물질적 실존의 하찮은 시련 및 진통과는 매우 다르다.

5. **연방우주 소구역담당 화해자.** 위원들은 지방우주의 문제로부터, 연방우주의 소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연구하도록 진급된다. 그들이 개별 행성으로부터 안쪽을 향해 멀리 상승할수록, 신성한 집행인의 물질적 임무는 점점 줄어들며; 점차 자비와 응보의 해석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유사{類似}-물질이므로-- 그 조사의 물질적 측면에 대해 그 위원회 전체가 동정심 어린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6. **연방우주 대구역담당 화해자.** 위원들의 업무 성격은,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판결해야 할 오해는 점점 줄어들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 신비한 현상은 점점 늘어난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차이를 중재하는 자의 위치로부터 **신비 해석자**로 진화한다--곧 재판관들이, 해석하는 선생으로 진화한다. 그들은 한때, 무지로 인해 어려움과 오해가 발생되게 하는 자들을 중재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정신의 충돌과 견해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로 지성적이고 인내심 있는 자들의 교관{敎官}이 되고 있다. 피조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피조물의 지식, 체험, 및 견해를 더욱 존중한다.

7. **연방우주담당 화해자.** 여기서 화해자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곧 서로 이해하고 완전하게 활동하는, 네 명의 중재자_교사가 된다. 신성한 집행인은, 인과응보를 집행하는 능력을 제거 당하고, 삼인조 영의 실제 대변자가 된다. 이때가 되면, 상담자요 선생인 그들은 연방우주 직무를 처리하면서 만나는 실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에 노련하게 숙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를 둘러싼 교육 구체 거주지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게 훌륭한 자문가이자 현명한 선생이 된다.

모든 화해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전반적 감독 아래서, **형상 조력자**들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낙원**으로 진보할 때까지 근무한다. **낙원**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기원된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으뜸 영**에게 보고한다.

administration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different orders of seraphim and other residents of the headquarters spheres of a local universe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help and decisions of the referee trios.

25:3.10 (278.1)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lain the nature of those differences which may arise in the detailed affairs of a system, a constellation, or a universe. Difficulties do develop, but they are very unlike the petty trials and travails of material existence as it is liv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25:3.11 (278.2) 5.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Minor Sectors.* From the problems of local universes the commissioners are advanced to the study of questions arising in the minor sectors of their superuniverse. The farther they ascend inward from the individual planets, the fewer are the material duties of the divine executioner; gradually he assumes a new role of mercy-justice interpreter, at the same time — being quasi-material — keeping the commission as a whole in sympathetic touch with the material aspects of its investigations.

25:3.12 (278.3) 6.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Major Sectors.* The character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ers continues to change as they advance. There is less and less of misunderstanding to adjudicate and more and more of mysterious phenomena to explain and interpret. From stage to stage they are evolving from arbiters of differences to *explainers of mysteries* — judges evolving into interpretative teachers. Arbiters of those who through ignorance permit difficulties and misunderstandings to arise, they once were; but they are now becoming instructors of those who are sufficiently intelligent and tolerant to avoid clashes of mind and wars of opinions. The higher a creature's education, the more respect he has for the knowledge, experience, and opinions of others.

25:3.13 (278.4) 7.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Here the conciliators become co-ordinate — four mutually understood and perfectly functioning arbiter-teachers. The divine executioner is divested of retributive power and becomes the physical voice of the spirit trio. By this time these counselors and teachers have become expertly familiar with most of the actual problems and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onduct of superuniverse affairs. Thus they become wonderful advisers and wise teachers of the ascending pilgrims who are in residence on the educational spheres surrounding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25:3.14 (278.5) All conciliators serv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Image Aids until such time as they are advanced to Paradise. During the Paradise sojourn they report to the Master Spirit

연방우주 기록부는, 그들의 관할권 밖에 벗어나 있었던 화해자들은 계수{計數}하지 않으며, 그런 위원회는 광우주 전반에 널리 흩어져 있다. **우버사**에서 최종 등록 보고서는, **오르본톤**에 작용하는 위원회의 숫자가 거의 18조{兆}에--곧 70조 이상의 개체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오르본톤**에서 창조돼 온 무수한 화해자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그 숫자는 훨씬 크고, **졸업생 안내자**들로 변환된 것을 고려하면 **하보나 하인** 전체 숫자와 일치한다.

연방우주 화해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때때로 **낙원**에서 완전성 협의회로 전환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무한한 영**이 온갖 우주를 위해 진화시키는, 하나의 협조하는 단체로서 출현하며, 숫자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훌륭한 집단의 존재다. 그들은 체험으로 상승하고 **낙원**에서 훈련받음으로써, **지존하신 분**이라는 떠오르는 실체를 독특하게 파악해 왔으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갖 우주를 돌아다닌다.

화해시키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네 명의 집단이, 자신이 원래 연합했던 대로, 함께 영원히 근무한다. 심지어 영화롭게 된 근무를 할 때에도, 그들은 축적된 시공우주 체험과 완전하게 된 체험 지혜에 속하는 4인조로 계속 활동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최상의 응보를 구현{具現}한 존재로서 영원히 연합돼 있다.

4. 법해석 고문

영 세계의 법적 및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이런 존재가 그렇게 창조됐던 것은 아니다. 초기의 최고스라빔 및 전{全}스라빔 중에서,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정신 가운데 100만 명을, **무한한 영**이 이방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핵심으로서 선택했다. 그리고 까마득히 먼 옛 시절부터, 진화 창조 계획에 완전한 법칙을 적용하면서 얻은 실제 체험이, **법해석 고문**이 되기로 열망하는 모두에게 요구돼 왔다.

법해석 고문은 다음과 같은 인격체 계층의 직급에서 모집된다:

1. **최고스라빔**.
2. **제2스라빔**.
3. **제3스라빔**.

who presides over the superuniverse of their origin.

25:3.15 (278.6) The superuniverse registries do not enumerate those conciliators who have passed beyond their jurisdiction, and such commissions are widely scattered through the grand universe. The last report of registry on Uversa gives the number operating in Orvonton as almost eighteen trillion commissions — over seventy trillion individuals. But these are only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multitude of conciliators that have been created in Orvonton; that number is of an altogether higher magnitude and is the equivalent of the total number of Havona Servitals, with allowances for the transmutation into Graduate Guides.

25:3.16 (278.7) From time to time, as the numbers of the superuniverse conciliators increase, they are translated to the council of perfection on Paradise, from which they subsequently emerge as the co-ordinating corps evolved by the Infinite Spirit for the universe of universes, a marvelous group of beings which is constantly increasing in numbers and efficiency. By experiential ascent and Paradise training they have acquired a unique grasp of the emerging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and they roam the universe of universes on special assignment.

25:3.17 (279.1) The members of a conciliating commission are never separated. A group of four forever serve together just as they were originally associated. Even in their glorified service they continue to function as quartets of accumulated cosmic experience and perfected experiential wisdom. They are eternally associated as the embodiment of the supreme justice of time and space.

4. TECHNICAL ADVISERS

25:4.1 (279.2) These legal and technical minds of the spirit world were not created as such. From the early supernaphim and omniaphim, one million of the most orderly minds were chosen by the Infinite Spirit as the nucleus of this vast and versatile group. And ever since that far-distant time, actual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perfection to the plans of evolutionary creation has been required of all who aspire to become Technical Advisers.

25:4.2 (279.3) The Technical Advisers are recruited from the ranks of the following personality orders:

- 25:4.3 (279.4) 1. The Supernaphim.
- 25:4.4 (279.5) 2. The Seconaphim.
- 25:4.5 (279.6) 3. The Tertiaphim.

4. 전{全}스라빔.

25:4.6 (279.7) 4. The Omniaphim.

5. 스라빔.

25:4.7 (279.8) 5. The Seraphim.

6. 특정 유형의 상승하는 필사자.

25:4.8 (279.9) 6. Certain Types of Ascending Mortals.

7. 특정 유형의 상승하는 중도자.

25:4.9 (279.10) 7. Certain Types of Ascending Midwayers.

현재, 일시적으로 배속돼 있는 모든 필사자 및 중도자를 제외하고, **우버사**에 등록되고 **오르본톤**에서 활동하는 **법해석 고문**의 숫자는 61조를 조금 넘는다.

25:4.10 (279.11) At the present time, not counting the mortals and midwayers who are all of transient attachment, the number of Technical Advisers registered on Uversa and operating in Orvonton is slightly in excess of sixty-one trillion.

법해석 고문들은 종종 개인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지만, 근무를 위해 조직돼 있고, 일곱 명씩 무리지어 배정된 구체에 공동 본부를 둔다. 각 집단에서 적어도 다섯 명은 영원한 신분을 가져야만 되고, 한편 두 명은 임시로 연합해 있을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은, **낙원**으로 상승하기를 추구하면서 이 자문 위원회들에서 근무하지만, **법해석 고문**을 위한 정규 훈련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층의 영구 회원이 되지 않는다.

25:4.11 (279.12) Technical Advisers frequently function as individuals but are organized for service and maintain common headquarters on the spheres of assignment in groups of seven. In each group at least five must be of permanent status, while two may be of temporary association. Ascending mortals and ascending midway creatures serve on these advisory commissions while pursuing the Paradise ascent, but they do not enter the regular courses of training for Technical Advisers, nor do they ever become permanent members of the order.

자문가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필사자와 중도자들이 그런 일에 선택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최상의 응보 개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낙원** 목표를 향해 여행하면서 추가된 지식과 증진된 솜씨를 변함없이 획득하게 될 때, 너는 자신이 이미 축적해 온 지혜와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받게 되며; **하보나**에 이르는 동안 내내 학생_선생 역할을 한다. 이 방대한 체험 대학의 상승하는 수준들을 통해서, 너는 자신의 상승 생애로 인한 새로_발견된 지식을 너보다 바로 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체제에서, 이 지식과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너의 역량과 자진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전에는, 너는 지식과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25:4.12 (279.13) Those mortals and midwayers who serve transiently with the advisers are chosen for such work because of their expertness in the concept of universal law and supreme justice. As you journey toward your Paradise goal, constantly acquiring added knowledge and enhanced skill, you are continuously afforded the opportunity to give out to others the wisdom and experience you have already accumulated; all the way in to Havona you enact the role of a pupil-teacher. You will work your way through the ascending levels of this vast experiential university by imparting to those just below you the new-found knowledge of your advancing career. In the universal regime you are not reckoned as having possessed yourself of knowledge and truth until you have demonstrated your ability and your willingness to impart this knowledge and truth to others.

긴 훈련과 실제 체험을 겪은 후에, 체루빔 신분보다 위에 있는 돌보는 영 가운데 누구든지, **법해석 고문**으로서 영구히 임명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모든 후보자가 이 봉사 체제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임무를 일단 시작한 후에는, 그만둘 수 없다. 오직 **태고 항존자**들만이 이 고문들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5:4.13 (280.1) After long training and actual experience, any of the ministering spirits above the status of cherubim are permitted to receive permanent appointment as Technical Advisers. All candidates voluntarily enter this order of service; but having once assumed such responsibilities, they may not relinquish them. Only the Ancients of Days can transfer these advisers to other activities.

지방우주의 **멜기세덱** 학부에서 시작된 **법해석 고문**의 훈련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들은 이 연방우주 훈련을 마친 후에, **하보나** 회로들의 안내 세계에 위치한 “일곱 케도 학교”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안내 세계들로부터, “법 윤리 및 **지존** 법해석 학부”로 진학하는데, 여기는 **법해석 고문**들을 완전하게 만들

25:4.14 (280.2) The training of Technical Advisers, begun in the Melchizedek colleges of the local universes, continues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From this superuniverse training they proceed to the “schools of the seven circles” located on the pilot worlds of the Havona circuits. And from the pilot worlds they are received into the “college of the ethics of law and the technique of

기 위한 **낙원** 훈련 학교다.

이 자문가들은 법률 전문가 이상{以上}이며; 적용된 법칙, 즉 광범한 창조계의 방대한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의 생명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 법칙을 배우는 학생인 동시에 가르치는 선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살아있는 법률 도서관이 되는데, 영원성의 통치자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의 형태 및 방식들에 관해서 시간세계의 인격체들을 가르침으로써, 끝없는 재난과 쓸모없는 지연을 방지한다. 그들은, 공간의 일꾼들이 **낙원**의 요구조건에 조화를 이루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으며; **창조주**들의 기법에 관해서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살아있는 응용 법률 도서관인 그런 자들은 창조될 수 없으며; 그런 존재는 실제 체험으로 진화해야 한다. 무한한 **신격**들은 실존적이며, 따라서 체험의 부족을 보충하며; 모든 것을 체험하기 전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만, 체험하지 않은 이 지식을 하위 피조물에게 나눠주지는 않는다.

법해석 고문들은, 지연을 막고 진보를 촉진시키며 성취에 관해 충고하는 일에 헌신돼 있다. 일할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길이 항상 있으며; 완전한 기법, 즉 어떤 신성한 방법이 항상 있고, 이 자문가들은 더 나은 이 길을 찾도록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안다.

대단히 현명하고 실용적인 이 존재들은, **우주 검열관**들의 근무 및 활동과 항상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멜기세덱**들에게는 유능한 단체가 제공돼 있다. 체계, 성좌, 우주, 그리고 연방우주 구역의 통치자 전원에게는 영적 세계의 기술적 또는 법률적 참조 정신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어떤 특별한 집단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법률 조언자로서 활동하는데, 확립된 생명체 증식 체제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충고하고, 그밖에 그들의 특권 및 활동 범위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모든 영_세계 처리사항의 적당한 용법과 기술에 관해서, 모든 계층의 존재에게 자문하는 자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역의 물질 피조물을 개인적으로 직접 대하지는 않는다.

법해석 고문들은 법률 관례에 관해 조언하는 외에도,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피조 존재들에 관한 모든 법칙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헌신돼 있다. 그들은 **우주 화해자**들에게 쓸모 있으며, 법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 다시 말해서, 확립된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체계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신격 의존성**이 어떻게 확실히 반응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에게 쓸모 있다. 그들은 **궁극자**의 기법까지도 설명해보려고 시도한다.

Supremacy," the Paradise training school for the perfecting of Technical Advisers.

25.4.15 (280.3) These advisers are more than legal experts; they are students and teachers of *applied* law, the laws of the universe applied to the lives and destinies of all who inhabit the vast domains of the far-flung creation. As time passes, they become the living law libraries of time and space, preventing endless trouble and needless delays by instructing the personalities of time regarding the forms and modes of procedure most acceptable to the rulers of eternity. They are able so to counsel the workers of space as to enable them to function in harmon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dise; they are the teachers of all creatures concerning the technique of the Creators.

25.4.16 (280.4) Such a living library of applied law could not be created; such beings must be evolved by actual experience. The infinite Deities are existential, hence are compensated for lack of experience; they know all even before they experience all, but they do not impart this nonexperiential knowledge to their subordinate creatures.

25.4.17 (280.5) Technical Advisers are dedicated to the work of preventing delay, facilitating progress, and counseling achievement. There is always a *best* and *right* way to do things; there is always the technique of perfection, a divine method, and these advisers know how to direct us all in the finding of this better way.

25.4.18 (280.6) These exceedingly wise and practical beings are alway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ervice and work of the Universal Censors. The Melchizedeks are provided with an able corps. The rulers of the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 sectors are all bountifully supplied with these technical or legal reference minds of the spiritual world. A special group act as law counselors to the Life Carriers, advising these Sons concerning the extent of permissible departure from the established order of life propagation and otherwise instructing them respecting their prerogatives and latitudes of function. They are the advisers of all classes of beings regarding the proper usages and techniques of all spirit-world transactions. But they do not directly and personally deal with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s.

25.4.19 (280.7) Besides counseling regarding legal usages, Technical Advisers are equally devoted to the efficient interpretation of all laws concerning creature beings —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They are available to the Universal Conciliators and to all others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of law; in other words, to know how the Supremacy of Deity may be depended upon to react in a given situation having factors of an established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order. They even essay to

법해석 고문들은, 선택받고 시험을 거친 존재이며;내가 아는 한,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그토록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그 신성한 법률을 경멸했다고 판결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우버사**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이 근무하는 범위에는 알려진 제한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낙원**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자문가 역할을 계속하며;법률과 체험으로 이뤄지는 전체 우주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

5. 낙원의 기록 관리인

하보나에 있는 3차 최고스라빔 가운데서, 어떤 선임 우두머리 기록원들이, **기록 관리인**, 즉 **빛의 섬**의 공식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자로 선택되며, 이 보관소는 지식 관리인들의 정신 속에 등록된 살아있는 기록과 대조{對照}를 이루는데, 이 기록을 가끔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인간거주 행성의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개별 기록의 근원이다. 우주들 전역에서, 다른 기록원들이 공식 기록과 살아있는 기록, 이 둘에 관해서 활동한다. **유란시아**에서 **낙원**까지, 이 두 가지 기록과 마주치는데:지방우주에서는, 씌어진 기록이 더 많고 살아있는 기록은 적으며;**낙원**에서는, 살아있는 기록이 더 많고 공식 기록은 적으며;**우버사**에서는 둘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모든 사건이 기록 대상이다. 국지적 중요성에 불과한 사건은 오직 국지적 기록에서만 발견되지만,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들은 그에 따라서 취급된다. **네바돈**의 행성, 체계, 및 성좌들로부터, 우주 중요성을 갖는 모든 것이 **살빙톤**에서 공표되며;그 사건들은, 그런 우주 수도로부터 구역 및 연방정부 직무에 속하는 더 높은 기록부로 옮겨진다. **낙원** 역시 적절한 연방우주 요약 및 **하보나** 자료를 소유하며;온갖 우주에 대한 역사적이고 누적된 이 진술은, 이런 고양{高揚}된 3차 최고스라빔이 보관한다.

이 존재들 가운데 더러는, **천상의 기록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기록 우두머리**로서 근무하도록 연방우주에 파송돼 왔는데, 어느 하나도 그들 계층의 영구적 출석점호로부터 이적{移籍}되지 않았다.

6. 천상의 기록원

elucidate the technique of the Ultimate.

25:4.20 (281.1) Technical Advisers are selected and tested beings; I have never known one of them to go astray. We have no records on Uversa of their ever having been adjudged in contempt of the divine laws they so effectively interpret and so eloquently expound. There is no known limit to the domain of their service, neither has any been placed upon their progress. They continue as advisers even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 whole universe of law and experience is open to them.

5. THE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25:5.1 (281.2) From among the tertiary supernaphim in Havona, certain of the senior chief recorders are chosen as Custodians of Records, as keepers of the formal archives of the Isle of Light, those archives which stand in contrast to the living records of registry in the minds of the custodians of knowledge, sometimes designated the “living library of Paradise.”

25:5.2 (281.3) The recording angels of the inhabited planets are the source of all individual records. Throughout the universes other recorders function regarding both formal records and living records. From Urantia to Paradise, both recordings are encountered: in a local universe, more of the written records and less of the living; on Paradise, more of the living and less of the formal; on Uversa, both are equally available.

25:5.3 (281.4) Every occurrence of significance in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s a matter of record. While events of no more than local importance find only a local recording, those of wider significance are dealt with accordingly. From the planets, systems, and constellations of Nebadon, everything of universe import is posted on Salvington; and from such universe capitals those episodes are advanced to higher recording which pertain to the affairs of the sector and supergovernments. Paradise also has a relevant summary of superuniverse and Havona data; and this historic and cumulative sto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in the custody of these exalted tertiary supernaphim.

25:5.4 (281.5) While certain of these being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superuniverses to serve as Chiefs of Records directing the activities of the Celestial Recorders, not one has ever been transferred from the permanent roll call of their order.

6. THE CELESTIAL RECORDERS

이들은 모든 기록을 복사하는 기록원인데, 원본 영{靈} 기록과 --복사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半}물질 사본을 만든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와 물질적 에너지 양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역량 때문이다. **천상의 기록원**들은 창조되지 않으며; 지방우주에서 상승한 스라빔이다.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기록 우두머리**들의 협의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그들이 일할 구체에 배정한다. 거기에는 **천상의 기록원**들을 위한 훈련하는 학교도 있다. **우버사**에 있는 학교는 **지혜 완성자**와 **신성한 조언자**들이 운영한다.

우주 봉사에서 진보함에 따라, 기록원들은 이 중으로 기록하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리하여 그 기록이 물질 계층에서 높은 빛의 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급의 존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너희가 이 물질 세계로부터 상승함에 따라서 과도기 체험을 하는 동안, 너희의 신분과 관계되는 구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록을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정통할 수 있다.

기록원들은 검증되고 입증된 단체다. 나는 **천상의 기록원**들이 변절했다는 말을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그들의 기록에 오류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이중{二重} 검열을 받게 돼 있는데, **우버사**에서 자신의 고양된 동료들이, 그리고 원본 영 기록의 유사{類似} 물질 사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자**들이, 그들의 기록을 세밀히 검사한다.

오르본톤에 있는 하위{下位} 기록 구체에 주둔하는 승진하는 기록원 숫자가 수 조{兆}에 이르지만, **우버사**에서 신분을 획득한 자의 숫자는 8백만 명이 안 된다. 이 선배 기록원, 즉 졸업생 기록원들은 연방우주 관리인이며, 시간과 공간에서 보증된 기록을 전달하는 자다. 그들의 영원한 본부는, **우버사**에 있는 기록 지역 주변에 있는 원형{圓形} 거주지 안에 있다. 그들은 이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남에게 맡긴 적이 결코 없으며; 개인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많은 숫자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록 관리인이 된 최고스라빔처럼, **천상의 기록원** 단체는 영구히 배치된다. 스라빔과 최고스라빔이 일단 이 봉사에 소집되면, **지존자 하나님**이 완전히 인격화되어 새롭고 변경된 경영을 하게 되는 날까지, **기록 관리인** 및 **천상의 기록원**으로서 각각 남아 있을 것이다.

태고 항존자들이 도착한 아득히 먼 옛 시절 이후로, **오르본톤** 전체에서 시공우주 중요성을 가

25:6.1 (281.6) These are the recorders who execute all records in duplicate, making an original spirit recording and a semimaterial counterpart — what might be called a carbon copy. This they can do because of their peculiar ability simultaneously to manipulate both spiritual and material energy. Celestial Recorders are not created as such; they are ascendant seraphim from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received, classified, and assigned to their spheres of work by the councils of the Chiefs of Records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also are located the schools for training Celestial Recorders. The school on Uversa is conducted by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the Divine Counselors.

25:6.2 (281.7) As the recorders advance in universe service, they continue their system of dual recording, thus making their records always available to all classes of beings, from those of the material order to the high spirits of light. In your transition experience, as you ascend from this material world, you will always be able to consult the records of, and to be otherwise conversant with,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your status sphere.

25:6.3 (282.1) The recorders are a tested and tried corps. Never have I known of the defection of a Celestial Recorder, and never has there been discovered a falsification in their records. They are subjected to a dual inspection, their records being scrutinized by their exalted fellows from Uversa and by the Mighty Messengers, who certify to the correctness of the quasi-physical duplicates of the original spirit records.

25:6.4 (282.2) While the advancing recorders stationed on the subordinate spheres of record in the Orvonton universes number trillions upon trillions, those of attained status on Uversa are not quite eight million in number. These senior or graduate recorders are the superuniverse custodians and forwarders of the sponsored records of time and space. Their permanent headquarters are in the circular abodes surrounding the area of records on Uversa. They never leave the custody of these records to others; as individuals they may be absent, but never in large numbers.

25:6.5 (282.3) Like those supernaphim who have become Custodians of Records, the corps of Celestial Recorders is of permanent assignment. Once seraphim and supernaphim are mustered into these services, they will respectively remain Celestial Recorders and Custodians of Records until the day of the new and modified administration of the full personalization of God the Supreme.

25:6.6 (282.4) On Uversa these senior Celestial Recorders can show the records of everything of

진 모든 것의 기록을, **우버사**에서 이 선배 **천상의 기록원**들이 보여줄 수 있으며, 한편 영원한 **섬**에서는 **무한한 영**이 의인화(擬人化)된 시절 이후에 **낙원**의 처리사항들을 입증하는 그 영역의 기록 보관소를, **기록 관리인**들이 지킨다.

7. 모론시아 동무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생애를 사는 모든 자의 친구이자 동역자다. 그들은 피조물 진보에 해당하는 상승자의 실제 업무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뿐만 아니라 **낙원** 여행에서 필수 동역자를 종종 따라가는 스랍 수호자들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도 대신하지 않는다. **모론시아 동무**는 다만, 안쪽을 향한 긴 상승을 막 시작하는 그들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주인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놀이 후원자이고, 회상 지휘자들이 이 업무를 훌륭하게 돕는다.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수행할 중대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제를 받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정기적으로 휴식하고 돌이켜보는 시절이 항상 제공될 것이다. **낙원**에 이르는 여행 내내, 휴식과 영 놀이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게 되며; 빛과 생명의 생애에서는, 경배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모론시아 동무**들은, 너희가 모론시아 체험의 마지막 국면을 최종적으로 떠날 때, 너희가 연방우주 영 모험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불임성 있는 이 피조물이 너희와 동행할 수 없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게 될 그런 친근한 동역자이지만, 그들은 오직 지방우주에서만 근무한다. 상승하는 생애의 각 단계마다 접촉 가능한 모든 인격체가 친근하고 불임성이 있겠지만, 너희가 **낙원 동무**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친구관계와 동무관계에 헌신된 다른 집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모론시아 동무의 업무는, 너희 지방우주의 직무와 관계되는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묘사된다.

8. 낙원 동무

낙원 동무들은 혼합 집단인데, 스라빔, 제2스라빔, 최고스라빔, 및 전(全)스라빔의 직급에서 뽑아서 소집된 집단이다. 너희가 더무니없이 긴 시간이라고 간주할 만큼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그들은 영구적인 신분을 갖지 않는다. 이 사역이 완성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 자신이 **낙원** 봉사에 호출됐을 때 수행했던 그 임무로 돌아간다.

cosmic import in all Orvonton since the far-distant times of the arrival of the Ancients of Days, while on the eternal Isle the Custodians of Records guard the archives of that realm which testify to the transactions of Paradise since the times of the personification of the Infinite Spirit.

7. THE MORONTIA COMPANIONS

25.7.1 (282.5) These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are the friends and associates of all who live the ascending morontia life. They are not indispensable to an ascender's real work of creature progression, neither do they in any sense displace the work of the seraphic guardians who often accompany their mortal associates on the Paradise journey. The Morontia Companions are simply gracious hosts to those who are just beginning the long inward ascent. They are also skillful play sponsors and are ably assisted in this work by the reversion directors.

25.7.2 (282.6) Though you will have earnest and progressively difficult tasks to perform on the morontia training worlds of Nebadon, you will always be provided with regular seasons of rest and reversion. Throughout the journey to Paradise there will always be time for rest and spirit play; and in the career of light and life there is always time for worship and new achievement.

25.7.3 (282.7) These Morontia Companions are such friendly associates that, when you finally leave the last phase of the morontia experience, as you prepare to embark upon the superuniverse spirit adventure, you will truly regret that these companionable creatures cannot accompany you, but they serve exclusively in the local universes. At every stage of the ascending career all contactable personalities will be friendly and companionable, but not until you meet the Paradise Companions will you find another group so devoted to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25.7.4 (283.1) The work of the Morontia Companions is more fully depicted in thos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your local universe.

8. THE PARADISE COMPANIONS

25.8.1 (283.2) The Paradise Companions are a composite or assembled group recruited from the ranks of the seraphim, seconaphim, supernaphim, and omniaphim. Though serving for what you would regard as an extraordinary length of time, they are not of permanent status. When this ministry has been completed, as a rule (but not invariably) they return to those duties they performed when summoned to Paradise service.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 그리고 낙원의 위엄자{威嚴者}가 천사 무리의 구성원들을 이 근무에 지명한다. 그들은 중앙 섬으로 소집되고,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이 그들을 낙원 동무로 임명한다. 낙원에서 영구적인 신분을 얻는 것 외에도, 낙원에서 동무관계를 이루는 이 일시적 근무는 돌보는 영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고귀한 명예다.

선택된 이 천사들은 동무관계의 봉사에 헌신하고, 홀로 낙원에 있을 기회가 있는 모든 계층의 존재에게, 주로 상승한 필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앙 섬에 홀로 있는 모든 다른 존재에게 동역자로서 배정된다. 낙원 동무는 자신이 친하게 사귀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이뤄야 할 일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동무일 뿐이다. 너희 필사자들이 낙원에 머무는 동안 만나게 될, --너희의 동료 순례자들은 제외하고-- 거의 모든 다른 존재는 너희와 함께 또는 너희를 위해 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동무들은 오직 너희와 함께 있고, 인격체 동역자로서 너희와 사귀라고 배정된다. 상냥하고 총명한 낙원 시민이 그들의 사역을 종종 돕는다.

필사자는 매우 사회적인 인종 출신이다. 창조주는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며, 따라서 낙원에서도 동무관계에 대한 배려가 적절하게 조성돼있다.

네가 이 세상 생애 중에 사귀 동무 또는 가까운 동역자와 함께 상승한 필사자로서 낙원에 도착하게 되면, 또는 너의 운명의 스랍 수호자가 우연히 너와 함께 도착하거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영원한 동무도 너에게 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홀로 도착한다면, 네가 시간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잠들었다가 빛의 섬에서 깨어날 때, 한 동무가 분명히 너를 환영할 것이다. 상승 연합체 가운데 누군가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알려진다 하더라도, 너를 영원한 기쁨으로 환영하도록, 그리고 너와 너의 동역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준비된 예약석{豫約席}으로 너를 안내하도록, 일시적인 동무가 지명돼 있을 것이다. 낙원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성 안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할 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임을, 너는 굳게 믿어도 좋다.

영접하는 동무들은 상승자가 하보나의 마지막 회로에 머무는 마지막 날들 동안 배정되며, 그들은 필사의 기원을 비롯해, 공간의 세계들과 하보나 궤도들을 지나온 다사다난했던 상승에 관한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한다.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을 환영할 때, 그들은 도착하는 이 순례자들의 생애에 이미 잘 통달해 있으며, 동정심 많고 매력적인 동무임을 즉시 입증할 것이다.

네가 낙원에서 완결성취자_이전{以前} 상태

25:8.2 (283.3) Members of the angelic hosts are nominated for this service by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by the superuniverse Reflective Spirits, and by Majeston of Paradise. They are summoned to the central Isle and are commissioned as Paradise Companions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ide from permanent status on Paradise, this temporary service of Paradise companionship is the highest honor ever conferred upon the ministering spirits.

25:8.3 (283.4) These selected angels are dedicated to the service of companionship and are assigned as associates to all classes of beings who may chance to be alone on Paradise, chiefly to the ascendant mortals but also to all others who are alone on the central Isle. Paradise Companions have nothing especial to accomplish in behalf of those with whom they fraternize; they are simply companions. Almost every other being you mortals will encounter during your Paradise sojourn — aside from your fellow pilgrims — will have something definite to do with you or for you; but these companions are assigned only to be with you and to commune with you as personality associates. They are often assisted in their ministry by the gracious and brilliant Paradise Citizens.

25:8.4 (283.5) Mortals come from races that are very social. The Creators well know that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and provision is accordingly made for companionship, even on Paradise.

25:8.5 (283.6) If you, as an ascendant mortal, should reach Paradise in the company of the companion or close associate of your earthly career, or if your seraphic guardian of destiny should chance to arrive with you or were waiting for you, then no permanent companion would be assigned you. But if you arrive alone, a companion will certainly welcome you as you awaken on the Isle of Light from the terminal sleep of time. Even if it is known that you will be accompanied by someone of ascendant association, temporary companions will be designated to welcome you to the eternal shores and to escort you to the reservation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you and your associates. You may be certain of being warmly welcomed when you experience the resurrection into eternity on the everlasting shores of Paradise.

25:8.6 (283.7) Reception companions are assigned during the terminal days of the ascenders' sojourn on the last circuit of Havona, and they carefully examine the records of mortal origin and eventful ascent through the worlds of space and the circles of Havona. When they greet the mortals of time, they are already well versed in the careers of these arriving pilgrims and immediately prove to be sympathetic and intriguing companions.

25:8.7 (283.8) During your prefinaliter sojourn on

로 머무는 동안, 상승 생애에서 --필사자든지 스랍이든지-- 너의 동역자였던 그로부터 어떤 이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된다면, 조연하고 동무관계를 이루도록 **낙원 동무** 하나가 즉시 배정될 것이다. 그 동무는, **낙원**에 홀로 거주하는 상승한 필사자에게 일단 배정되고 나면, 이 인격자가 자신의 상승 동역자와 재결합하거나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으로 소집될 때까지, 그와 함께 남는다.

상승자의 연방우주 유형과는 다른 본성을 가진 동무에게 상승자가 맡겨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낙원 동무**들은 기다리는 순서대로 배치된다. 어떤 **유란시아** 필사자가 오늘 **낙원**에 도착했다면, **오르본톤**에서 기원했거나 아니면 **일곱째 으뜸 영**의 본성을 가진, 첫 번째로 기다리는 동무가 그에게 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전{全}스라빔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한 피조물과 함께 봉사하지 않는다.

낙원 동무들은 추가적인 여러 봉사를 수행하는데:상승하는 필사자가 홀로 중앙우주에 도착했다면,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에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어느 국면에서 실패했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를 시간세계의 우주로 돌려보낼 것이고, 즉시 **낙원 동무** 예비군에게 호출명령을 내릴 것이다. 실패한 순례자가 **낙원**을 향해 다시 상승을 시작하려고 중앙우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그와 함께 남아 있도록, 이 계층 가운데 하나가 배정될 것이다.

상승하는 순례자가, 상승하는 스랍, 즉 필사자 생애의 수호천사와 동행해서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실패했다면, 그 수호천사는 자신의 필사자 동역자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 스라빔은 항상 자원하며, 시간과 공간 속의 근무로 돌아가는 긴 기간의 필사자 동지{同志}를 따라가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긴밀하게 연합된 두 필사 상승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한 편이 **하나님**을 성취한 반면 다른 편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면, 성공한 개인은 낙담한 인격체와 함께 진화 창조계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지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낙원 동무** 예비군을 호출하게 되고, 자원자 가운데 한 명이 실망한 그 순례자와 동행하도록 선택된다. 그때 한 명의 자원하는 **낙원 시민**이, 성공한 필사자와 연합하게 되는데, 성공한 자는 실패한 동료가 **하보나**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중앙 **섬**에 머물며, 그동안 그는 특정한 **낙원**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로 상승하던 모험 이야기를 제시한다.

[**우버사**에서 온, **권세를 가진 높은 분**이 후원함]

Paradise, if for any reason you should be temporarily separated from your associate of the ascending career — mortal or seraphic — a Paradise Companion would be forthwith assigned for counsel and companionship. When once assigned to an ascendant mortal of solitary residence on Paradise, the companion remains with this person until he either is rejoined by his ascendant associates or is duly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25:8.8 (284.1) Paradise Companions are assigned in order of waiting except that an ascender is never placed in the charge of a companion whose nature is unlike his superuniverse type. If a Urantia mortal were arriving on Paradise today, there would be assigned to him the first waiting companion either of origin in Orvonton or otherwise of the nature of the Seventh Master Spirit. Hence the omniaphim serve not with the ascendant creature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25:8.9 (284.2) Many additional services are performed by the Paradise Companions: If an ascending mortal should reach the central universe alone and, while traversing Havona, should fail in some phase of the Deity adventure, in due course he would be remand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forthwith a call would be made to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mpanions. One of this order would be assigned to follow the defeated pilgrim, to be with him and to comfort and cheer him, and to remain with him until he returned to the central universe to resume the Paradise ascent.

25:8.10 (284.3) If an ascending pilgrim met defeat in the Deity adventure while traversing Havona in the company of an ascending seraphim, the guardian angel of the mortal career, she would elect to accompany her mortal associate. These seraphim always volunteer and are permitted to accompany their long-time mortal comrades back to the service of time and space.

25:8.11 (284.4) But not so with two closely associated mortal ascenders: If one attains God while the other temporarily fails, the successful individual invariably chooses to go back to the evolutionary creations with the disappointed personality, but this is not permitted. Instead, a call is made to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mpanions, and one of the volunteers is selected to accompany the disappointed pilgrim. A volunteer Paradise Citizen then becomes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mortal, who tarries on the central Isle awaiting the Havona return of the defeated comrade and in the meantime teaches in certain Paradise schools, presenting the adventurous story of the evolutionary ascent.

25:8.12 (284.5) [Sponsored by One High in Authority from Uversa.]

제26편.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

⇨ 025

유랜시아 책

027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6편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

섹션

소개

1. 돌보는 영
2. 강력한 최고스라빔
3. 3차 최고스라빔
4. 2차 최고스라빔
5. 순례자 도우미
6. 최상급 안내자
7. 삼위일체 안내자
8. 아들 습득자
9. 아버지 안내자
10. 조인자 및 자문가
11. 휴식 보완자

소개

최고스라빔은 **낙원**과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이며;**무한한 영**의 가장 낮은 자녀 집단--곧 천사 무리--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낙원 섬**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돌보는 영들과 마주치게 돼있다. 조직된 인간거주 창조물 가운데 어느 주요 부분이든지,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은 없다.

1. 돌보는 영

천사는, 모든 공간에서 진화하고 상승하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돌보는 영 동역자이며;또한 그들은 구체의 신성한 인격체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무리에 해당하는 동업자요 일하는 동역자다. 모든 계층의 천사는 분명한 인격체이고 매우 개별화돼 있다. 그들은 모두 회상 지휘자들의 보살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큰 수용력을 소유하고

PAPER 26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inistering Spirits
2. The Mighty Supernaphim
3. The Tertiary Supernaphim
4. The Secondary Supernaphim
5. The Pilgrim Helpers
6. The Supremacy Guides
7. The Trinity Guides
8. The Son Finders
9. The Father Guides
10. The Counselors and Advisers
11. The Complements of Rest

INTRODUCTION

26:0.1 (285.1) SUPERNAPHIM are the ministering spirits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highest order of the lowest group of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 the angelic hosts. Such ministering spirits are to be encountered from the Isle of Paradise to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No major part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s without their services.

1. THE MINISTERING SPIRITS

26:1.1 (285.2) Angels are the ministering-spirit associates of the evolutionary and ascending will creatures of all space; they are also the colleagues and working associates of the higher hosts of the divine personalities of the spheres. The angels of all orders are distinct personalities and are highly individualized. They all have a large

있다. **공간의 사자 무리**와 함께, 돌보는 영들은 휴식하고 변화하는 기간을 가지며; 매우 사교적인 본성을 지니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교제 능력을 갖고 있다.

광우주의 돌보는 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최고스라빔.**
2. **제2스라빔.**
3. **제3스라빔.**
4. **전{全}스라빔.**
5. **스라빔.**
6. **체루빔과 사노빔.**
7. **중도{中道} 피조물.**

천사 계층의 개별 구성원은, 우주에서 개인 신분이 전적으로 고정돼 있지는 않다. 어떤 계층의 천사는 일정 기간 **낙원 동무**가 될 수 있으며; 더러는 **천상의 기록원**이 되며; 더러는 **법해석 고문** 직급으로 승진한다. 어떤 체루빔은 스랍 신분 및 운명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반면, 진화 스라빔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수준을 성취할 수 있다.

일곱 계층의 돌보는 영들은, 계시된 바와 같이,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 최고스라빔에 속하는 세 계층은, **낙원_하보나** 체계에서 근무한다. **무한한 영**이, 1차 최고스라빔, 즉 **낙원** 최고스라빔을 창조한다. **하보나**에서 근무하는 2차 및 3차 계층은, 각각 **으뜸 영**들의 자손이고 **회로 영**들의 자손이다.

2.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 -- 제2스라빔, 제3스라빔, 및 전{全}스라빔. **반사하는 영**들의 자녀인 **제2스라빔**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다양하게 근무한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된 **제3스라빔**은, 결국 **태고 항존자**들과 **창조주 아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봉사에 전념한다. **전스라빔**은, **무한한 영**과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협동으로 창조되고, 후자의 독점적 하인이다. 이 세 계층에 대한 논의는 본 문서들에서 계속되는 주제{主題}를 형성한다.

3. **지방우주의 돌보는 영**은, 스라빔 그리고 그 보조관{輔佐官}인 체루빔을 포함한다. 필사 상승자는 **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손과 처음 접촉을 갖

capacity for appreciation of the ministrations of the reversion directors. Together with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the ministering spirits enjoy seasons of rest and change; they possess very social natures and have an associative capacity far transcending that of human beings.

26:1.2 (285.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grand universe are classified as follows:

26:1.3 (285.4) 1. Supernaphim.

26:1.4 (285.5) 2. Seconaphim.

26:1.5 (285.6) 3. Tertiaphim.

26:1.6 (285.7) 4. Omniaphim.

26:1.7 (285.8) 5. Seraphim.

26:1.8 (285.9) 6. Cherubim and Sanobim.

26:1.9 (285.10) 7. Midway Creatures.

26:1.10 (285.11)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angelic orders are not altogether stationary as to personal status in the universe. Angels of certain orders may become Paradise Companions for a season; some become Celestial Recorders; others ascend to the ranks of the Technical Advisers. Certain of the cherubim may aspire to seraphic status and destiny, while evolutionary seraphim can achieve the spiritual level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26:1.11 (285.12) The seven orders of ministering spirits, as revealed, are grouped for 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functions of greatest importance to ascending creatures:

26:1.12 (285.13) 1.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 three orders of *supernaphim* serve in the Paradise-Havona system. Primary or Paradise *supernaphim* are created by the Infinite Spirit. The secondary and tertiary orders, serving in Havona, are respectively the offspring of the Master Spirits and of the Spirits of the Circuits.

26:1.13 (286.1) 2.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 the *seconaphim*, the *tertiaphim*, and the *omniaphim*. *Seconaphim*, th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variously serv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ertiaphim*, of origin in the Infinite Spirit, are eventually dedicated to the liaison service of the Creator Sons and the Ancients of Days. *Omniaphim* are created concertedly by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are the exclusive servants of the latter. The discussion of these three orders forms the subject of a succeeding narrative in this series.

26:1.14 (286.2) 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embrace the *seraphim* and their assistants, the *cherubim*. With these offspring of a Universe Mother Spirit mortal ascenders have

는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탄생되는 중도 피조물은, 천사 계층에 속하는 것이 확실히 타당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종종 돌보는 영들과 함께 분류된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스라빔 및 체루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너희 지방우주 직무를 다루는 문서들에 제시돼 있다.

모든 계층의 천사 무리는, 다양한 우주 봉사 에 헌신하고, 천상의 존재 가운데 높은 계층들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돌보지만, 시간세계의 자녀를 위한 점진적 완전성이라는 상승 요강{要綱} 촉진에 많은 숫자로 채택되는 자는,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및 스라빔이다. 그들은,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기를 추구하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하려고 **무한한 영**이 제공해 온, 단절되지 않은 영 사역자들 계통을 형성한다.

최고스라빔은, 오직 하나의 행위 국면에 관하여 “영 극성{極性}”에 제한을 받는데, 이는 **만유의 아버지** 때문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독자적 회로를 직접 채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으로 일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접 사역에 따라서 능력을 공급받을 때, 최고스라빔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쌍을 이뤄서 자발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제2스라빔도 마찬가지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도 **영원한 아들** 회로에 동조하기 위해서 쌍으로 일해야 한다. 스라빔은 분리되고 지역화된 인격체로서 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연합된 쌍으로서 극성{極性}을 갖게 됐을 때에만 회로화될 수 있다. 그런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합될 때, 한 쪽이 다른 쪽에게 보충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보충 관계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그들의 영원한 본성일 필요는 없다.

이 찬란한 빛의 피조물은, 바로 1차 우주 회로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유지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식물 작용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만, 천사 무리는 회로화돼 있으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묘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반포{頒布}하는 가르침에 참여하며; 생명 에너지들을 동화시키는 자체 기법과 매우 흡사하게 지식을 받고 지혜를 흡수한다.

2. 강력한 최고스라빔

최고스라빔은 **낙원**과 중앙우주에 머무는 모든 유형의 존재를 돌보는 노련한 사역자다. 이 고등 천사들은: 1차, 2차, 및 3차의 세 주요 계층으로 창조된다.

1차 최고스라빔은 **공동 창조주의** 독자적 자손이다. 그들은, **낙원 시민**으로 구성된 특정한 집

initial contact. The *midway creatures*, of nativity on the inhabited worlds, are not really of the angelic orders proper, though often functionally grouped with the ministering spirits. Their story, with an account of the seraphim and cherubim, is presented in those paper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your local universe.

26:1.15 (286.3) All orders of the angelic hosts are devoted to the various universe services, and they minister in one way or another to the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but it is the supernaphim, seconaphim, and seraphim who, in large numbers, are employed in the furtherance of the ascending scheme of progressive perfection for the children of time. Functioning in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they form that unbroken chain of spirit ministers whi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finite Spirit for the help and guidance of all who seek to attain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Eternal Son.

26:1.16 (286.4) Supernaphim are limited in “spirit polarity” regarding only one phase of action, that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y can work singly except when directly employing the exclusive circuits of the Father. When they are in power reception on the Father’s direct ministry, supernaphim must voluntarily associate in pairs to be able to function. Seconaphim are likewise limited and in addition must work in pairs in order to synchronize with the circuits of the Eternal Son. Seraphim can work singly as discrete and localized personalities, but they are able to encircuit only when polarized as liaison pairs. When such spirit beings are associated as pairs, the one is spoken of as complementary to the other. Complementary relationships may be transient; they are not necessarily of a permanent nature.

26:1.17 (286.5) These brilliant creatures of light are sustained directly by the intake of the spiritual energy of the primary circuits of the universe. Urantia mortals must obtain light-energy through the vegetative incarnation, but the angelic hosts are encircuited; they “have food that you know not.” They also partake of the circulating teachings of the marvelous Trinity Teacher Sons; they have a reception of knowledge and an intake of wisdom much resembling their technique of assimilating the life energies.

2. THE MIGHTY SUPERNAPHIM

26:2.1 (286.6) The supernaphim are the skilled ministers to all types of beings who sojourn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These high angels are created in three major order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26:2.2 (287.1) *Primary supernaphim* are the exclusive offspring of the Conjoint Creator. They divide their

단과, 계속_증가하는 상승한 순례자 단체에 대해, 동일한 수로 나뉘어 사역한다. 영원한 **섬**의 이 천사들은 **낙원** 거주자로 구성된 두 집단에 대한 기본 훈련을 촉진시킬 때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은, -하나의 의지를 지닌 신성하고 완전한 가장 높은 유형의 피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온갖 우주 전체에서 가장 낮은 의지 피조물 가운데 완전하게 진화된 유형의 피조물인-- 독특한 두 계층의 우주 피조물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많은 것을 제공한다.

1차 최고스라빔의 업무는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별도로 고려될 것이다.

2차 최고스라빔은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다. 그들은 중앙 창조물의 세계 회로들에서 긴 기간 머무는, 수많은 계층의 **낙원 시민**에 대한 교육 훈련에 똑같이 관여해 사역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 봉사 국면을 논의할 수 없다.

이 고등 천사들에는 일곱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로부터 기원되며, 따라서 그 본성을 닮는다. 집단적으로 볼 때, 독특한 존재 및 실체들에 속하는 많은 다른 집단을 **일곱 으뜸 영**이 창조하며, 각 계층의 개별 구성원은 본성에서 비교적 균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일곱 영**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계층들은 항상 본성에서 칠중{七重}이며; 각 **으뜸 영**의 자녀는 자신을 창조한 자의 본성을 띠며,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런 것이 2차 최고스라빔의 기원이고, 모든 창조된 일곱 유형의 천사들은, 그들 전체 계층에게 열려있는 모든 활동 경로에서, 주로 중앙 및 신성한 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활동한다.

하보나의 일곱 행성 회로 각각은 **일곱 회로 영** 가운데 하나의 직접 감독을 받는데, 그들 자체는 **일곱 으뜸 영**이 집단으로 --따라서 균일하게-- 창조했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본질에 참여하더라도, 보조하는 이 일곱 **하보나 영**은 본래의 원형{原型}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의 (영원한) 창조가 있는 후에, 그러나 **그랜한다** 시대보다 훨씬 전에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목적에 대한 **으뜸 영**들의 창조적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광우주가 조직되고 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무한한 영**과 그의 모든 창조 동역자는, 보편적 조정자로서, 체험적 **신격**들 안에서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동시에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 적절한 창조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역량을 풍성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3차 최고스라빔은 이 **일곱 회로 영** 안에서 기원된다. 그들 각각은 개별 **하보나** 회로에서, 중앙

ministry about equally between certain groups of the Paradise Citizens and the ever-enlarging corps of ascendant pilgrims. These angels of the eternal Isle are highly efficacious in furthering the essential training of both groups of Paradise dwellers. They contribute much that is helpful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se two unique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 the one being the highest type of divine and perfect will creature, and the other, the perfected evolution of the lowest type of will creatur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26:2.3 (287.2) The work of the primary supernaphim is so unique and distinctive that it will be separately considered in the succeeding narrative.

26:2.4 (287.3) *Secondary supernaphim* are the directors of the affairs of ascending beings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They are equally concerned in ministering to the educational training of numerous orders of Paradise Citizens who sojourn for long periods on the world circuits of the central creation, but we may not discuss this phase of their service.

26:2.5 (287.4) There are seven types of these high angels, each of origin in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in nature patterned accordingly. Collectively, the Seven Master Spirits create many different groups of unique beings and entities, and the individual members of each order are comparatively uniform in nature. But when these same Seven Spirits create individually, the resulting orders are always sevenfold in nature; the children of each Master Spirit partake of the nature of their creator and are accordingly diverse from the others. Such is the origin of the secondary supernaphim, and the angels of all seven created types function in all channels of activity open to their entire order, chiefly on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26:2.6 (287.5) Each of the seven planetary circuits of Havona is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one of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themselves the collective — hence uniform — cre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ough partaking of the natur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se seven subsidiary Spirits of Havona were not a part of the original pattern universe. They were in function after the original (eternal) creation but long before the times of Grandfanda. They undoubtedly appeared as a creative response of the Master Spirits to the emerging purpose of the Supreme Being, and they were discovered in function upon the organization of the grand universe. The Infinite Spirit and all his creative associates, as universal co-ordinators, seem abundantly endowed with the ability to make suitable creative responses to the simultaneous developments in the experiential Deities and in the evolving universes.

26:2.7 (287.6) *Tertiary supernaphim* take origin in thes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Each one of

우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3차 계층에 해당하는 충분한 숫자의 고등 최고스라빔 사역자들을 창조하도록, **무한한 영**에게서 능력을 부여받는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회로 영**들이 이 천사 사역자 가운데 비교적 소수를 생산하는 동안, **일곱 으뜸 영**은 **그랜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2차 최고스라빔 창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계층 가운데 연장자{年長者}로서, 3차 최고스라빔이 먼저 고려될 것이다.

3. 3차 최고스라빔

일곱 으뜸 영의 이 봉사자들은 다양한 **하보나** 회로의 전문가 천사이며, 그들의 사역은,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순례자와, 영원성에 속하는 하강하는 순례자 양쪽에 미친다. 완전한 중앙우주에 속한 10억 연구 세계에서는, 모든 계층에 속한 너희의 최고스라빔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온전히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볼 때, 너희 모두는 거기서 상호 접촉하고 동정심을 갖는 우에 있고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강하는 순례자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 절묘하게 사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 회로들을 거쳐 가는 **낙원 시민**이며, 첫째 회로의 안내 세계를 통해서 **하보나**에 들어가고, 바깥으로 일곱째까지 진행한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는 반대 방향으로 **하보나**를 통과하는데, 일곱째 회로 안내 세계의 길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진행한다. 세계에서 세계로, 그리고 회로에서 회로로 상승하는 피조물의 진행에는 어떤 시간제한도 존재하지 않는 데, 모론시아 세계들의 거주지에 어떤 고정된 시간제한도 독단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적합하게 발전된 개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방우주 훈련 세계에 머무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어떤 순례자도, 점진적으로 영성화하는 일곱 **하보나** 회로를 하나라도 피해서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베푸는 봉사에 주로 배정되는 3차 최고스라빔 무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조화 감독관**. 심지어 완전한 **하보나**에서도, 차후 **낙원** 성취를 위해 시간세계의 순례자를 준비시키는 모든 업무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하는 영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곧 모든 것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조화 감독관의 실제 사명이다. 그들은 첫째 회로에서 기원되므로, **하보나** 전역에서 근무하고, 그들이 그 회로들에 현존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잘못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계층의--심지어 다양한 수준의--인격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조화시키는 위대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them, on the separate Havona circles, is empowered by the Infinite Spirit to create a sufficient number of high superaphic ministers of the tertiary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central universe. While the Circuit Spirits produced comparatively few of these angelic ministers prior to the arrival in Havona of the pilgrims of time, the Seven Master Spirits did not even begin the creation of secondary supernaphim until the landing of Grandfanda. As the older of the two orders, the tertiary supernaphim will therefore receive first consideration.

3. THE TERTIARY SUPERNAPHIM

26:3.1 (288.1) These servant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angelic specialists of the various circuits of Havona, and their ministry extends to both the ascending pilgrims of time and the descending pilgrims of eternity. On the billion study worlds of the perfect central creation, your superaphic associates of all orders will be fully visible to you. There you will all be, in the highest sense, fraternal and understanding beings of mutual contact and sympathy. You will also fully recognize and exquisitely fraternize with the descending pilgrims, the Paradise Citizens, who traverse these circuits from within outward, entering Havona through the pilot world of the first circuit and proceeding outward to the seventh.

26:3.2 (288.2)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pass through Havona in the opposite direction, entering by way of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uit and proceeding inward. There is no time limit set on the progress of the ascending creatures from world to world and from circuit to circuit, just as no fixed span of time is arbitrarily assigned to residence on the morontia worlds. But, whereas adequately developed individuals may be exempted from sojourn on one or more of the local universe training worlds, no pilgrim may avoid passing through all seven of the Havona circuits of progressive spiritualization.

26:3.3 (288.3) That corps of tertiary supernaphim which is chief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pilgrims of time is classified as follows:

26:3.4 (288.4) 1. *The Harmony Supervisors*. It must be apparent that some sort of co-ordinating influence would be required, even in perfect Havona, to maintain system and to insure harmony in all the work of preparing the pilgrims of time for their subsequent Paradise achievements. Such is the real mission of the harmony supervisors — to keep everything moving along smoothly and expeditiously. Originating on the first circuit, they serve throughout Havona, and their presence on the circuits means that nothing can possibly go amiss. A great ability to co-ordinate a

언제 어디서나, 이 최고스라빔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시간세계의 순례자와 영원의 순례자가 서로 이해하는 데 막대하게 기여한다.

2. **우두머리 기록원**. 이 천사들은 둘째 회로에서 창조되지만, 중앙우주 어디서든지 활동한다. 그들은 3중으로 기록하는데, **하보나**의 엄밀한 서류철을 위해, 자기 계층의 영적 서류철을 위해, 그리고 **낙원**의 공식 기록을 위해 기록한다. 그 외에도 그들은,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 즉 1차 계층에 속하는 최고스라빔의 지식 관리인들에게, 중요한 참된_지식의 진행사항을 자동으로 전달한다.

3. **방송인**. 제3 회로 영의 자녀들은, 비록 자신의 공식 주둔지가 최외곽 궤도에 있는 70_번 행성에 위치하더라도, **하보나** 전역에서 작용한다. 이 으뜸 기술자들은 중앙 창조물의 방송 청취인이자 송출인이고, **낙원**에 있는 모든 **신격** 현상에 대한 공간 보고서를 지도하는 자다. 그들은 공간의 기본 회로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

4. **사자**(使者)들은 4_번 회로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된 모든 소식을 지참하는 자로서, **낙원 하보나** 체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 즉 천상의 인격체, **낙원** 순례자, 그리고 심지어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혼들을 섬긴다.

5. **정보 협조자**. 다섯째 회로 영의 자녀인 이 3차 최고스라빔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하강하는 순례자 사이에서 형제다운 교제를 항상 증진시키는, 현명하고 동정심 많은 존재다. 그들은 **하보나** 거주자 전체에게, 특히 상승자들에게, 온갖 우주 직무에 대해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공헌한다. **하보나**의 이 “살아있는 신문”은, 방송인 및 반사자들과 접촉하는 덕분에, 중앙우주의 방대한 소식 회로들을 지나가는 모든 정보에 즉시 정통하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 도표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장 빠른 전신{電信} 기법으로 기록하기에 1,000년 걸릴 만큼 많은 정보를, **유란시아** 시간으로 한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한다.

6. **운송 인격체**. 6_번 회로에서 기원되는 이 존재들은, 대개 최외곽 회로에 있는 40_번 행성으로부터 운용된다.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한 낙담하는 후보자들을 데려가는 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봉사에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 모든 존재와, 공간 횡단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바지할 준비가 돼있다.

7. **예비 단체**. 상승하는 존재, **낙원** 순례자, 그

diversity of activities involving personalities of differing orders — even multiple levels — enables these supernaphim to give assistance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They contribute enormously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pilgrims of time and the pilgrims of eternity.

26:3.5 (288.5) 2. *The Chief Recorders*. These angels are created on the second circuit but operate everywhere in the central universe. They record in triplicate, executing records for the literal files of Havona, for the spiritual files of their order, and for the formal records of Paradise. In addition they automatically transmit the transactions of true-knowledge import to the living libraries of Paradis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of the primary order of supernaphim.

26:3.6 (288.6) 3. *The Broadcasters*. The children of the third Circuit Spirit function throughout Havona, although their official station is located on planet number seventy in the outermost circle. These master technicians are the broadcast receivers and senders of the central creation and the directors of the space reports of all Deity phenomena on Paradise. They can operate all of the basic circuits of space.

26:3.7 (288.7) 4. *The Messengers* take origin on circuit number four. They range the Paradise-Havona system as bearers of all messages requiring personal transmission. They serve their fellows, the celestial personalities, the Paradise pilgrims, and even the ascendant souls of time.

26:3.8 (289.1) 5. *The Intelligence Co-ordinators*. These tertiary supernaphim, the children of the fifth Circuit Spirit, are always the wise and sympathetic promoters of fraternal association between the ascending and the descending pilgrims. They minister to all the inhabitants of Havona, and especially to the ascenders, by keeping them currently informed regarding the affai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By virtue of personal contacts with the broadcasters and the reflectors, these “living newspapers” of Havona are instantly conversant with all information passing over the vast news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secure intelligence by the Havona graph method, which enables them automatically to assimilate as much information in one hour of Urantia time as would require a thousand years for your most rapid telegraphic technique to record.

26:3.9 (289.2) 6. *The Transport Personalities*. These beings, of origin on circuit number six, usually operate from planet number forty in the outermost circuit. It is they who take away the disappointed candidates who transiently fail in the Deity adventure. They stand ready to serve all who must come and go in the service of Havona, and who are not space traversers.

26:3.10 (289.3) 7. *The Reserve Corps*. The

리고 **하보나**에 머무는 다른 계층의 존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 일어나는 동요 때문에, 일곱째 궤도의 안내 세계에 이 최고스라빔 예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최고스라빔은 여기서 지원된다. 그들은 특별한 설계 없이 창조되고, 3차 계층의 최고스라빔 동역자들이 하는, 힘이 덜 드는 국면에 속하는 어떤 임무든지 담당하기에 적합하다.

4. 2차 최고스라빔

2차 최고스라빔은 중앙우주 일곱 행성 회로에서 사역하는 자다. 일부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고, 전체 계층 가운데 절반은, 영원성에 속하는 **낙원**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에 배정된다. 이 **낙원 시민**은, **하보나** 회로들을 통과하는 순례 행렬에서, **필사자 완결성 단체**로부터 온 자원자들의 시중도 받는데, 이것은 최초의 완결성취자 집단이 완성된 후로 계속돼 온 제도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사역에 정기적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제2 최고스라빔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순례자 도우미.**
2. **최상급 안내자.**
3. **삼위일체 안내자.**
4. **아들 습득자.**
5. **아버지 안내자.**
6. **조언자 및 자문가.**
7. **휴식 보완자.**

이 실무 집단들은 각각, 창조된 일곱 유형 전체의 천사를 포함하며, 공간에 있는 순례자는 항상, 그 순례자가 탄생된 그 연방우주를 지배하는 **으뜸 영** 안에서 지원된, 제2 최고스라빔에게서 개인교습을 받는다. 너희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달할 때, 창조된 본성이 **오르본톤의 으뜸 영**으로부터 도출된--곧 너희 자신의 진화된 본성과 비슷한--최고스라빔이 너희를 분명히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개인교사들이 너희의 연방우주 **으뜸 영**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낙원**의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 너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너희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특별히 갖추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서 활동하는, 제2스라빔 가운데 1차 계층의 운반 인격체들이, **하보나**의 흑암 인력 본체들을 지나서 외부 행성 회로까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운송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도록 허락 받은, 행성 및 지방우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스라빔은, **하보나**를 향해 긴 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필사 동역자와

fluctuations in the work with the ascendant beings, the Paradise pilgrims, and other orders of beings sojourning in Havona, make it necessary to maintain these reserves of supernaphim on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le, where they take origin. They are created without special design and are competent to take up service in the less exacting phases of any of the duties of their superaphic associates of the tertiary order.

4. THE SECONDARY SUPERNAPHIM

26:4.1 (289.4) The secondary supernaphim are ministers to the seven planetary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Part are devoted to the service of the pilgrims of time, and one half of the entire order is assigned to the training of the Paradise pilgrims of eternity. These Paradise Citizens, in their pilgrimage through the Havona circuits, are also attended by volunteers from the Mortal Finality Corps, an arrangement that has prevail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first finaliter group.

26:4.2 (289.5) According to their periodic assignment to the ministry of the ascending pilgrims, secondary supernaphim work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 26:4.3 (289.6) 1. Pilgrim Helpers.
- 26:4.4 (289.7) 2. Supremacy Guides.
- 26:4.5 (289.8) 3. Trinity Guides.
- 26:4.6 (289.9) 4. Son Finders.
- 26:4.7 (289.10) 5. Father Guides.
- 26:4.8 (289.11) 6. Counselors and Advisers.
- 26:4.9 (289.12) 7. Complements of Rest.

26:4.10 (289.13) Each of these working groups contains angels of all seven created types, and a pilgrim of space is always tutored by secondary supernaphim of origin in the Master Spirit who presides over that pilgrim's superuniverse of nativity. When you mortals of Urantia attain Havona, you will certainly be piloted by supernaphim whose created natures — like your own evolved natures — are derived from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And since your tutors spring from the Master Spirit of your own superuniverse, they are especially qualified to understand, comfort, and assist you in all your efforts to attain Paradise perfection.

26:4.11 (290.1) The pilgrims of time are transported past the dark gravity bodies of Havona to the outer planetary circuit by the transport personalities of the primary order of seconaphim, operating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 majority, but not all, of the seraphim of planetary and local universe service who have been

헤어질 것이며, 숭고한 임무를 위해서 오랜 기간의 집중 훈련을 당장 시작하게 되는데, 스라빔으로서 완성된 실존과 최상의 봉사를 성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시간세계의 순례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고 **완결성취 단체**에 관한 계시되지 않은 봉사에 배치된, 그런 필사자의 행로를 영원히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순례자는, **하보나**의 영접 행성인 일곱째 회로의 안내 세계에, 오직 한 가지 완전한 자질, 즉 완전한 목적을 지니고 도착한다. **만유의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은 공간 세계의 유한한 자녀를 향한 몸소 놀라운 초청이자_명령하는 방송이다.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그 엄청난 명령을 성취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협동하며 수고하는 동안, 그 권고의 선포가 전체 창조계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생존에 대한 우주의 기획을 돕는 모든 도우미 무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역으로, 네가 마침내 **하보나** 영접 세계에 안착할 때, 너는 오직 한 가지를 완성한--즉 목적을 완성한-- 상태로 도착한다. 너의 목적은 철저히 증명됐으며; 너의 신앙은 시험이 완료됐다. 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고 발표된다. **만유의 아버지**를 식별하기에 실패한 것조차, **하보나**의 완전한 구체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두가 거쳐야 하는 체험을 통과한 상승 필사자의 신앙을 흔들거나 신뢰감을 심하게 흔들 수 없다. 네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가 되면, 너의 신실성은 숭고한 경지에 도달한다. 목적의 완성과 욕구의 신성함은, 신앙의 견고함과 함께, 정착된 영원한 거주지로 네가 들어가도록 보장하며; 시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너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출했으며; 이제 너는 **하보나**의 문제와 **낙원**의 엄청난 일 직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공간 세계 학교들에서 체험하던 시기에 그토록 오래 훈련 받았다.

상승하는 순례자는 신앙으로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것이 시간세계의 자녀들을 영원성의 문으로 들여보낸다. 이제는 순례자 도우미들이, **낙원**이 완전하듯이 인격체를 완전케 하기에 너무나 필수적인, 완비된 이해력과 납득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납득하는 역량이, **낙원**에 이르는 필사자 여권(旅券)이다. 기꺼이 믿으려는 태도가, **하보나**에 이르는 열쇠다.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주하는 **조율사**와 협동하는 것이, 진화로 생존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代價)다.

accredited for the Paradise ascent will part with their mortal associates before the long flight to Havona and will at once begin a long and intense training for supernal assignment, expecting to achieve, as seraphim, perfection of existence and supremacy of service. And this they do, hoping to rejoin the pilgrims of time, to be reckoned among those who forever follow the course of such mortals as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and have received assignment to the undisclosed service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26:4.12 (290.2) The pilgrim lands on the receiving planet of Havona,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uit, with only one endowment of perfection, perfection of purpose. The Universal Father has decreed: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That is the astounding invitation-command broadcast to the finite children of the worlds of space. The promulgation of that injunction has set all creation astir in the co-operative effort of the celestial beings to assist in bringing about the fulfillment and realization of that tremendous command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26:4.13 (290.3) When, through and by the ministry of all the helper hosts of the universal scheme of survival, you are finally deposited on the receiving world of Havona, you arrive with only one sort of perfection — *perfection of purpose*. Your purpose has been thoroughly proved; your faith has been tested. You are known to be disappointment proof. Not even the failure to discern the Universal Father can shake the faith or seriously disturb the trust of an ascendant mortal who has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all must traverse in order to attain the perfect spheres of Havona. By the time you reach Havona, your sincerity has become sublime. Perfection of purpose and divinity of desire, with steadfastness of faith, have secured your entrance to the settled abodes of eternity; your deliverance from the uncertainties of time is full and complete; and now must you come face to face with the problems of Havona and the immensities of Paradise, to meet which you have so long been in training in the experiential epochs of time on the world schools of space.

26:4.14 (290.4) Faith has won for the ascendant pilgrim a perfection of purpose which admits the children of time to the portals of eternity. Now must the pilgrim helpers begin the work of developing that perfection of understanding and that technique of comprehension which are so indispensable to Paradise perfection of personality.

26:4.15 (290.5) *Ability to comprehend is the mortal passport to Paradise.* Willingness to believe is the key to Havona. The acceptance of sonship, co-operat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is the price of evolutionary survival.

5. 순례자 도우미

일곱 집단의 2차 최고스라빔 중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집단은 순례자 도우미들인데, 길게 여행한 공간 상승자들을 중앙우주의 안정된 세계들과 정착된 조직체에 환영하며 맞이하는, 빠른 이해력과 광범한 연민의 정을 가진 존재다. 이 고등사역자들은 영원에 속하는 **낙원** 순례자를 위해서도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 중에서 첫 순례자는,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 **그랜한다**가 착륙함과 동시에, 안쪽 **하보나** 회로의 안내 세계에 도착했다. 아득히 먼 과거의 그 시절에, **낙원**에서 온 순례자들과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4번째 회로의 영접 세계에서 처음 만났다.

이 순례자 도우미들은, 일곱째 궤도의 **하보나** 세계들에서 활동하며, 세 주요 부문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첫째는 **낙원 삼위일체**를 최고로 이해하는 것; 둘째는 **아버지 아들** 동업관계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무한한 영**에 대해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여러 훈육 국면은 각각 일곱 분야로, 각 분야는 열 두 하위 부서로, 각 하위 부서는 70개의 부속 집단으로 나뉘며; 이 70개 훈육 부속 집단 각각은 1,000개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더 자세한 훈육은 그 후의 궤도들에서 제공되지만, **낙원**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윤곽은 순례자 도우미들이 가르친다.

그것은, 이때, 공간에 있는 신앙의 시험을 거치고 많이 여행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요 과정, 즉 기본 과정이다. 그러나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이 자녀들은, **하보나**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불확실성을 즐기고, 실망감으로 튕실해지고, 외견상 패배에 관심을 쏟고, 어려움 앞에서 기운을 차리고, 광대함에 직면해 불굴의 용기를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꺾이지 않는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 왔다. 오랫동안, 이 순례자들의 투쟁 구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무 것도--전혀 아무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각각의 **하보나** 궤도에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모든 순례자는 그 특별한 유형의 상승한 피조물을 돕기에 본성적으로 적합한, 최고스라빔의 보호 아래 계속 있지만, 숙달해야만 되는 과정은 중앙우주에 도착한 모든 상승자에게 상당히 균일하다. 이 성취 과정은 양적이고, 질적이며, 체험적이다--곧 지적이고, 영적이며, 최상의 과정이다.

하보나 궤도에서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제한된 방법으로 진보 가능성에 기여하지만, 성취가 마지막이자 최상의 시험이다. 네

5. THE PILGRIM HELPERS

26:5.1 (291.1) The first of the seven groups of secondary supernaphim to be encountered are the pilgrim helpers, those beings of quick understanding and broad sympathy who welcome the much-traveled ascenders of space to the stabilized worlds and settled economy of the central universe. Simultaneously these high ministers begin their work for the Paradise pilgrims of eternity, the first of whom arrived on the pilot world of the inner Havona circuit concomitantly with the landing of Grandfanda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circuit. Back in those far-distant days the pilgrims from Paradise and the pilgrims of time first met on the receiving world of circuit number four.

26:5.2 (291.2) These pilgrim helpers, functioning on the seventh circle of Havona worlds, conduct their work for the ascending mortals in three major divisions: first, the supreme understanding of the Paradise Trinity; second, the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Father-Son partnership; and third, the intellectual recognition of the Infinite Spirit. Each of these phases of instruction is divided into seven branches of twelve minor divisions of seventy subsidiary groups; and each of these seventy subsidiary groupings of instruction is presented in one thousand classifications. More detailed instruction is provided on subsequent circles, but an outline of every Paradise requirement is taught by the pilgrim helpers.

26:5.3 (291.3) That, then, is the primary or elementary course which confronts the faith-tested and much-traveled pilgrims of space. But long before reaching Havona, these ascendant children of time have learned to feast upon uncertainty, to fatten upon disappointment, to enthuse over apparent defeat, to invigorate in the presence of difficulties, to exhibit indomitable courage in the face of immensity, and to exercise unconquerable faith when confronted with the challenge of the inexplicable. Long since, the battle cry of these pilgrims became: “In liaison with God, nothing — absolutely nothing — is impossible.”

26:5.4 (291.4) There is a definite requirement of the pilgrims of time on each of the Havona circles; and while every pilgrim continues under the tutelage of supernaphim by nature adapted to helping that particular type of ascendant creature, the course that must be mastered is fairly uniform for all ascenders who reach the central universe. This course of achievement i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experiential — intellectual, spiritual, and supreme.

26:5.5 (291.5) Time is of little consequence on the Havona circles. In a limited manner it enters into the possibilities of advancement, but achievement

가 안쪽을 향해서 다음 궤도로 지나갈 자격이 있다고, 너의 최고스랍 동역자가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를 일곱째 **회로 영**의 열 두 보조체 앞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여기서, 네가 기원된 연방 우주 및 네가 태어난 체계가 결정한 궤도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궤도에서 신성{神性}의 성취는 안내 세계에서 일어나며, 상승하는 순례자의 연방우주의 **으뜸 영**을 영적으로 알아보고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

바깥쪽 **하보나** 궤도의 업무가 끝나고, 제시된 과정이 숙달되면, 순례자 도우미들이 피보호자들을 다음 궤도의 안내 세계로 데리고 가서, 지존성 안내자들의 보호 아래에 맡긴다. 순례자 도우미들은 그 전송을 유쾌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항상 일정 기간 머문다.

6. 최상급 안내자

공간의 상승자들은, 일곱째에서 여섯째 궤도로 전환될 때 “영적 졸업생”으로 명명되며, 지존성 안내자들의 직접 감독 아래에 들어간다. 이 안내자들을, **졸업생 안내자들**--곧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 하인 동역자들과 함께, 상승 순례자와 하강 순례자 양쪽을, 모든 **하보나** 회로에서 돌보는 일을 한다. 지존성 안내자들은 중앙우주의 여섯째 궤도에서만 활동한다.

상승자들이 **최상급 신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궤도에서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진화하는 우주에서 지낸 긴 생애를 통해서, 시_공간 창조계가 전능하게 전면통제 되는 실체를 점점 더 자각하는 체험을 해왔다. 그들은 이곳 **하보나** 회로에서, 시_공간을 통일하는 중앙우주 근원과--곧 **지존자 하나님**의 영적 실체와-- 마주치는 일이 가까워진다.

나는 이 궤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 **지존성**의 어떤 인격화된 현존도, 상승자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일곱째 으뜸 영**과 갖는 새로운 관계들이, **지존하신 분**의 이 비 접촉성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기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각 피조물은, **지존하신 분**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을 가정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는, 변형하는 성장, 즉 새로운 의식 통합, 새로운 목적 영성화, 신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신비스런 진행사항을 목격해 온 우리에게는, **지존자 하나님**이 그의 체험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 체험 수용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지적 파악, 영적 통찰력, 및 인격 영향력을, 애정을 다해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실존적인 **낙원 신격**들을 성

is the final and supreme test. The very moment your superaphic associate deems you to be competent to pass inward to the next circle, you will be taken before the twelve adjutants of the seventh Circuit Spirit. Here you will be required to pass the tests of the circle determined by the superuniverse of your origin and by the system of your nativity. The divinity attainment of this circle takes place on the pilot world and consists in the spiritual recog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Master Spirit of the ascending pilgrim's superuniverse.

26:5.6 (291.6) When the work of the outer Havona circle is finished and the course presented is mastered, the pilgrim helpers take their subjects to the pilot world of the next circle and commit them to the care of the supremacy guides. The pilgrim helpers always tarry for a season to assist in making the transfer both pleasant and profitable.

6. THE SUPREMACY GUIDES

26:6.1 (292.1) Ascenders of space are designated “spiritual graduates” when translated from the seventh to the sixth circle and are placed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supremacy guides. These guide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Graduate Guides — belonging to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who, with their servital associates, minister on all circuits of Havona to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 pilgrims. The supremacy guides function only on the sixth circle of the central universe.

26:6.2 (292.2) It is in this circle that the ascenders achieve a new realization of Supreme Divinity. Through their long careers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 pilgrims of time have been experiencing a growing awareness of the reality of an almighty overcontrol of the time-space creations. Here, on this Havona circuit, they come near to encountering the central universe source of time-space unity — the spiritual reality of God the Supreme.

26:6.3 (292.3) I am somewhat at a loss to explain what takes place on this circle. No personalized presence of Supremacy is perceptible to the ascenders. In certain respects, new relationships with the Seventh Master Spirit compensate this noncontactability of the Supreme Being. But regardless of our inability to grasp the technique, each ascending creature seems to undergo a transforming growth, a new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 new spiritualization of purpose, a new sensitivity for divinity, which can hardly be satisfactorily explained without assuming the unrevealed activity of the Supreme Being. To those of us who have observed these mysterious transactions, it appears as if God the Supreme were affectionately bestowing upon his experiential children, up to the very limits of their experiential

취하기 위해서, **지존 삼위일체**의 신성 수준을 통찰(通察)하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들에게 무척 필요할 것이다.

지존성 안내자는, 자기 학생들이 진보할 정도로 성숙했다고 판단할 때, 70인 위원회에 그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이 위원회는 6_번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검열관으로서 근무하는 혼합된 집단이다. 순례자들은, 자신이 **지존하신 분**과 **지존 삼위일체**를 충분히 납득하고 있음을 이 위원회에게 확신시킨 후에, 다섯째 회로로 전환하도록 인가를 받는다.

7. 삼위일체 안내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보하는 순례자들에게 **하보나** 훈련을 시키는 다섯째 회도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역자다. 영적 졸업생들은 여기서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후보자”라고 칭함 받는데,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시 아래 이 회도에서, **무한한 영**의 인격을 인식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순례자들이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한 증진된 훈육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여전히 더_고생스럽고 훨씬 더_힘든 영적 노력의 본질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연구와 실제적인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는데, 이 회도의 세계들에서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제시된, 높은 목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가장 신실하고 유능하며; 각 순례자는, 이 계층에 속하는 2차 최고스라빔 가운데 하나의 집중된 관심을 받고, 온전한 애정을 누린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본성과 기법에 관해서 상승자들을 교육시키기에 참여하는 이 안내자들 및 기타 영적 존재 무리의 도움과 보조가 없다면, 시간세계의 어떤 순례자도, **낙원 삼위일체** 중에서 처음으로 접근 가능한 인격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회로에서 훈련 과정이 완성된 후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자기 학생들을 그 회로의 안내 세계로 데려가며,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후보자들의 시험관 및 보증인으로서 작용하는, 여러 삼중 위원회 가운데 하나 앞에 그들을 출석시킨다. 이런 위원회는, 완결성취자 중에서 한 명의 동료, 1차 최고스라빔 계층의 활동 지휘자 가운데 한 명, 그리고 공간에 있는 **단독 사자** 또는 **낙원의 삼위일체처럼 된 아들** 한 명으로 구성된다.

상승한 혼이 **낙원**을 향해 실제로 출발할 때, 오직 운반(運搬) 삼총사, 즉: 최고스라빔 회도 동역자,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의 항상_현존하는 하인 동역자만 동반한다. **하보나** 회로들에서 **낙**

capacities, those enhancements of intellectual grasp, of spiritual insight, and of personality outreach which they will so need, in all their efforts at penetrating the divinity level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o achieve the eternal and existential Deities of Paradise.

26:6.4 (292.4) When the supremacy guides deem their pupils ripe for advancement, they bring them before the commission of seventy, a mixed group serving as examiners on the pilot world of circuit number six. After satisfying this commission as to their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Being and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he pilgrims are certified for translation to the fifth circuit.

7. THE TRINITY GUIDES

26:7.1 (292.5) Trinity guides are the tireless ministers of the fifth circle of the Havona training of the advancing pilgrims of time and space. The spiritual graduates are here designated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since it is on this circle, under the direction of the Trinity guides, that the pilgrims receive advanced instruction concerning the divine Trinity in preparation for the attempt to achieve the personality recogni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here the ascending pilgrims discover what true study and real mental effort mean as they begin to discern the nature of the still-more-taxing and far-more-arduous spiritual exertion that will be requir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high goal set for their achievement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26:7.2 (292.6) Most faithful and efficient are the Trinity guides; and each pilgrim receives the undivided attention, and enjoys the whole affection, of a secondary supernaphim belonging to this order. Never would a pilgrim of time find the first approachable person of the Paradise Trinity were it not for the help and assistance of these guides and the host of other spiritual beings engaged in instructing the ascenders respecting the nature and technique of the forthcoming Deity adventure.

26:7.3 (293.1)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of training on this circuit the Trinity guides take their pupils to its pilot world and present them before one of the many triune commissions functioning as examiners and certifiers of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These commissions consist of one fellow of the finaliters, one of the directors of conduct of the order of primary supernaphim, and either a Solitary Messenger of space or a Trinitized Son of Paradise.

26:7.4 (293.2) When an ascendant soul actually starts for Paradise, he is accompanied only by the transit trio: the superaphic circle associate, the Graduate Guide, and the ever-present servital associate of the latter. These excursions from the

원을 향한 이 짧은 소풍은 시험 여행이며; 상승자들은 아직 **낙원** 신분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를 달성하고, **하보나** 회로들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있는, 시간세계의 마지막 휴식을 통과하기 전에는, **낙원**에서 거주 신분을 얻지 못한다. 신성한 휴식을 가진 후에야, 그들은 “신성의 본질”과 “지존성의 영”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삼위일체** 현존 안에서, 그리고 영원성 궤도에서 실제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상승자의 동무인 운반 삼총사는, **삼위일체**의 영적 빛남에 해당하는 지리적 현존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라고 요구받기보다는, 인격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납득하는 어려운 과제에서, 순례자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라고 요구받는다. **낙원**에 있는 어떤 상승한 순례자든지, **삼위일체**의 지리적 현존, 즉 소재지{所在地}의 현존을 구분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격**들, 특히 **제3 인격자**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현존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납득하지는 않는다. **만유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최소한 납득하는 것조차 훨씬 더 어렵다.

무한한 영에 대한 추구가 달성에 실패하는 일은 드물며, 그들의 상대자들이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이 국면에서 성공을 이룩했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그들을 **하보나**의 넷째 궤도에 있는 **아들** 습득자(拾得者)들의 사역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

8. 아들 습득자

넷째 **하보나** 회로는 때로 “**아들**들의 회로”라고 불린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영원한 아들**과 이해심 있는 접촉을 이루기 위하여, 이 회로 세계들로부터 **낙원**으로 가며, 한편 하강하는 순례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납득을, 이 회로의 세계들에서 성취한다. 이 회로에는,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양쪽에게 **낙원 미가엘**들의 예비 단체가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특별 봉사 학교를 유지하는 일곱 세계가 있으며; 시간세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이 서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되게 이해하는 일이, **미가엘 아들**들의 이 세계들에서 일어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회로에서 겪는 체험은 **하보나**에 머무는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흥미롭다.

아들 습득자들은, 넷째 회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를 돌보는 최고스랍 사역자다. **영원한 아들**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깨닫도록 후보자들을 준비시키는 일반적인 일 외에, 이 **아들** 습득자들은 피교육자가 세 가지에서 온전히 성공하게 되도록 충분

Havona circles to Paradise are trial trips; the ascenders are not yet of Paradise status. They do not achieve residential status on Paradise until they have passed through the terminal rest of time subsequent to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final clearance of the Havona circuits. Not until after the divine rest do they partake of the “essence of divinity” and the “spirit of supremacy” and thus really begin to function in the circle of eternity and in the presence of the Trinity.

26:7.5 (293.3) The ascender's companions of the transit trio are not required to enable him to locate the geographic presence of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Trinity, rather to afford all possible assistance to a pilgrim in his difficult task of recognizing, discerning, and comprehending the Infinite Spirit sufficiently to constitute personality recognition. Any ascendant pilgrim on Paradise can discern the geographic or locational presence of the Trinity, the great majority are able to contact the intellectual reality of the Deities, especially the Third Person, but not all can recognize or even partially comprehend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Father and the Son. Still more difficult is even the minimum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Universal Father.

26:7.6 (293.4) Seldom does the quest for the Infinite Spirit fail of consummation, and when their subjects have succeeded in this phase of the Deity adventure, the Trinity guides prepare to transfer them to the ministry of the Son finders on the fourth circle of Havona.

8. THE SON FINDERS

26:8.1 (293.5) The fourth Havona circuit is sometimes called the “circuit of the Sons.” From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ascending pilgrims go to Paradise to achieve an understanding contact with the Eternal Son, while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descending pilgrims achieve a new comprehension of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reator Sons of time and space. There are seven worlds in this circuit on which the reserve corps of the Paradise Michaels maintain special service schools of mutual ministry to both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pilgrims; and it is on these worlds of the Michael Sons that the pilgrims of time and the pilgrims of eternity arrive at their first truly mutual understanding of one another. In many respects the experiences of this circuit are the most intriguing of the entire Havona sojourn.

26:8.2 (294.1) The Son finders are the superaphic ministers to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fourth circuit. In addition to the general work of preparing their candidates for a realization of the Trinity relationships of the Eternal Son, these Son finders

히 교육시켜야 하는데:첫째는, **아들**을 영적으로 적절히 납득하는 것;둘째는, **아들**의 인격을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그리고 셋째는, **무한한 영**의 인격과 **아들**을 적절히 구별하는 것이다.

무한한 영에 도달한 후에는, 아무 시험도 더 시행되지 않는다. 안쪽 궤도들에서 있었던 시험은, 순례 후보자들이 **신격**들의 뒤덮음 속에 포용됐을 때의 행적이다. 승진은 순전히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영성을 지녔는지는 오직 **하나님**들만 판정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도 전혀 제시되지 않으며, 후보자 자신이나 다양한 교사 및 안내자도 전혀 꾸지람 듣거나 비판 받지 않는다. **낙원**에서는, 실망감이 패배로 간주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연기됨은 결코 치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시간세계에서 외견상 실패는, 영원성의 의미심장한 지연(遲延)과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실패로 보이는 지연을 체험하는 순례자는 많지 않다. 1_번 연방우주에서 온 어떤 순례자가 첫 시도에서 때때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모두가 **무한한 영**을 달성한다. **영**을 달성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드물며;첫 모험에서 실패한 그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3_번과 5_번 연방우주로부터 나온다. **영**과 **아들**을 발견한 후에, **아버지**를 달성하는 첫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6_번 연방우주로부터 나오지만, 2_번과 3_번으로부터 나온 자들 가운데 일부도 마찬가지로 실패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런 명백한 실패들에 대해 어떤 선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듯하지만;실제로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지연에 불과하다.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 실패한 후보자들은, 임무를 부과(附課)하는 우두머리들, 즉 1차 최고스라빔 집단의 관할권에 맡겨지고, 약 1,000년 동안 공간 영역에 대한 업무로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두 번째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해 준비하는 재훈련을 받기에 가장 알맞은 연방창조계로 돌아간다. 이런 근무를 마친 후에, 그들은 자신이 제안한 바에 따라서,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돌아가는데, 중단됐던 자신의 생애의 궤도로 즉시 호송되며,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준비를 곧 재개한다. 2차 최고스라빔은, 피교육자를 조정해서 성공적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 두 번째 모험을 하는 동안, 바로 이 최고스라빔 사역자 및 기타 안내자들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따라간다.

must so fully instruct their subjects that they will be wholly successful: first, in the adequate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Son; second, in the satisfactory personality recognition of the Son; and third, in the proper differentiation of the Son from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26:8.3 (294.2) After the attainment of the Infinite Spirit, no more examinations are conducted. The tests of the inner circles are the performances of the pilgrim candidates when in the embrace of the enshrouding of the Deities. Advancement is determined purely by the spirituality of the individual, and no one but the Gods presumes to pass upon this possession. In the event of failure no reasons are ever assigned, neither are the candidates themselves nor their various tutors and guides ever chided or criticized. On Paradise, disappointment is never regarded as defeat; postponement is never looked upon as disgrace; the apparent failures of time are never confused with the significant delays of eternity.

26:8.4 (294.3) Not many pilgrims experience the delay of seeming failure in the Deity adventure. Nearly all attain the Infinite Spirit, though occasionally a pilgrim from superuniverse number one does not succeed on the first attempt. The pilgrims who attain the Spirit seldom fail in finding the Son; of those who do fail on the first adventure, almost all hail from superuniverses three and five. The great majority of those who fail on the first adventure to attain the Father, after finding both the Spirit and the Son, hail from superuniverse number six, though a few from numbers two and three are likewise unsuccessful. And all this seems clearly to indicate that there is some good and sufficient reason for these apparent failures; in reality, simply unescapable delays.

26:8.5 (294.4) The defeated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are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hiefs of assignment, a group of primary supernaphim, and are remanded to the work of the realms of spac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millennium. They never return to the superuniverse of their nativity, always to that supercreation most propitious for their re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second Deity adventure. Following this service, on their own motion, they return to the outer circle of Havona, are immediately escorted to the circle of their interrupted career, and at once resume their preparations for the Deity adventure. Never do the secondary supernaphim fail to pilot their subjects successfully on the second attempt, and the same superaphic ministers and other guides always attend these candidates during this second adventure.

9. 아버지 안내자

9. THE FATHER GUIDES

순례자의 혼이 **하보나**의 셋째 궤도를 달성할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 즉 최고스랍 사역자 가운데 나이가 더 많고 매우 노련하며 가장 많이 체험한 자들의 감독 아래로 들어온다. **아버지** 안내자들은 이 회로의 세계들에서 지혜 학교와 기술 학부들을 유지하는데,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가 거기서 교사로서 근무한다. 영원에 도달하는 이 초월 모험에서,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유용할만한 어떤 것도 무시되지 않는다.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은, 거쳐야 될 회로들이 남아 있음에도, 영원을 향한 여권{旅券}이다. 따라서 시간세계의 마지막 모험이 곧 시작될 것임; 영원의 문지방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공간에 있는 다른 피조물이 찾고 있음을, 운반 삼총사가 알릴 때, 그것은 3_번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중대한 때다.

시간 세계에서 시험은 거의 끝났으며; 영원을 향한 경주는 모두 달려왔다. 불확실성의 날은 끝났으며; 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으며; **완전하게** 되라는 명령은 이행됐다. 지성을 지닌 실존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시간세계의 피조물인 물질 인격체가, 공간의 진화 구체들을 거슬러 올라왔으며, 그리하여 상승 계획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한편, 그 세계들에 있는 하위 피조물에게 주신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영원히 증명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한 세계 한 세계, 상승 생애를 통달했고, **신격**의 목표를 달성했다. 생존이 완전히 완성되고, 완전성이 신성의 지존성 안에 충만된다. 시간은 영원 속에서 사라지며; 공간은 **만유의 아버지**와 경건하게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없어진다. **하보나** 방송은 영광스런 공간 보고서를 번개처럼 내보내는데, 이것은 진실로, 동물 본성과 물질 기원을 갖는, 양심 있는 피조물이 진화 상승을 통해서 실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이 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10. 조언자 및 자문가

둘째 궤도에 속하는 최고스랍 조언자 및 자문가들은,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영원성 생애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관{敎官}이다. **낙원**을 달성하면 새롭고 더 높은 종류의 책임이 뒤따르고, 둘째 궤도에 머무는 것은 헌신된 이 최고스라빔의 유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기회를 제공한다.

신격을 달성하려는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연방우주 봉사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궤도에서 바로 둘째 궤도로 나아간다. 그래서 조언자 및 자문가들 역시 이 실망한 순례자에게

26:9.1 (294.5) When the pilgrim soul attains the third circle of Havona, he comes under the tutelage of the Father guides, the older, highly skilled, and most experienced of the superaphic ministers.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Father guides maintain schools of wisdom and colleges of technique wherein all the beings inhabiting the central universe serve as teachers. Nothing is neglected which would be of service to a creature of time in this transcendent adventure of eternity attainment.

26:9.2 (294.6)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assport to eternity, notwithstanding the remaining circuits to be traversed. It is therefore a momentous occasion on the pilot world of circle number three when the transit trio announce that the last venture of time is about to ensue; that another creature of space seeks entry to Paradise through the portals of eternity.

26:9.3 (295.1) The test of time is almost over; the race for eternity has been all but run. The days of uncertainty are ending; the temptation to doubt is vanishing; the injunction to be *perfect* has been obeyed. From the very bottom of intelligent existence the creature of time and material personality has ascended the evolutionary spheres of space, thus proving the feasibility of the ascension plan while forever demonstrating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command of the Universal Father to his lowly creatures of the worlds: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26:9.4 (295.2) Step by step, life by life, world by world, the ascendant career has been mastered, and the goal of Deity has been attained. Survival is complete in perfection, and perfection is replete in the supremacy of divinity. Time is lost in eternity; space is swallowed up in worshipful identity and harmony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 broadcasts of Havona flash forth the space reports of glory, the good news that in very truth the conscientious creatures of animal nature and material origin have, through evolutionary ascension, become in reality and eternally the perfected sons of God.

10. THE COUNSELORS AND ADVISERS

26:10.1 (295.3) The superaphic counselors and advisers of the second circle are the instructors of the children of time regarding the career of eternity. The attainment of Paradise entails responsibilities of a new and higher order, and the sojourn on the second circle affords ample opportunity to receive the helpful counsel of these devoted supernaphim.

26:10.2 (295.4) Those who are unsuccessful in the first effort at Deity attainment are advanced from the circle of failure directly to the second circle before they are returned to superuniverse service.

조언자 및 위로자로서 근무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방금 부딪혔고, 이 실망은, 사다리를 오르듯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긴 목록의 그런 체험과 --그 광대함을 제외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체험의 잔을 끝까지 마신 자가 바로 그들이며; 시간 속에서 일시적 실망감을 겪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사역자로서, 그들이 연방우주 근무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목격해 왔다.

실망한 그 상대자들은 2_번 회로에 오래 머문 후에, 이 궤도의 안내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 성 협회의 검사를 받고,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비영적 신분이 고려되는 한, 이것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이미 성공한 것처럼,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동일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런 후보자들의 영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그들의 실패는 접근하는 기법의 어느 국면에, 또는 그들이 체험한 배경의 어느 부분에 내재적이다.

그때 그 궤도의 조언자들이, **낙원**에 있는 임무배정 우두머리들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한때의 근무로 귀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이전(以前)의 날과 시대의 과제로 돌아간다. 그들은 어느 다른 날, 자신이 가장 실망했던 그 궤도로 돌아오고,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새롭게 시도한다.

둘째 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들에게는 진화의 불확실성이라는 자극이 이미 끝났지만, 영원한 임무를 떠나는 모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이 궤도에 머무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매우 유익한 반면, 그 이전 궤도들에서 있었던 기대에 부푼 열정은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때의 세계들로 돌아가서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즐겁지만 서운함으로 긴 투쟁을 되돌아보는 순례자가 많은데,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 때, 너희 필사자들이 젊은 날과 초기 시절의 고생을 가끔 돌아보면서 너희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안쪽 궤도 횡단이 바로 앞에 있고, 그 후에 곧 마지막 운반 수면상태가 종료될 것이며,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궤도에 있는 조언자 및 자문가들은 이 위대한 마지막 휴식, 즉 상승 생애의 획기적 단계들 사이에 영원히 끼어 있는 부득이한 수면상태를 위하여, 상대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만유의 아버지를 달성한 상승하는 그 순례자들이 둘째_궤도 체험을 완성하면, 항상_따라다니는 **졸업생 안내자**들이 그들을 최종 궤도로 받아들

Thus the counselors and advisers also serve as the counselors and comforters of these disappointed pilgrims. They have just encountered their greatest disappointment, in no way differing from the long list of such experiences whereon they climbed, as on a ladder, from chaos to glory — except in its magnitude. These are they who have drained the experiential cup to its dregs; and I have observed that they temporarily return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s as the highest type of loving ministrators to the children of time and temporal disappointments.

26:10.3 (295.5) After a long sojourn on circuit number two the subjects of disappointment are examined by the councils of perfection sitting on the pilot world of this circle and are certified as having passed the Havona test; and this, so far as nonspiritual status is concerned, grants them the same standing in the universes of time as if they had actually succeeded in the Deity adventure. The spirit of such candidates was wholly acceptable; their failure was inherent in some phase of the technique of approach or in some part of their experiential background.

26:10.4 (295.6) They are then taken by the counselors of the circle before the chiefs of assignment on Paradise and are remanded to the service of time on the worlds of space; and they go with joy and gladness to the tasks of former days and ages. In another day they will return to the circle of their greatest disappointment and attempt anew the Deity adventure.

26:10.5 (296.1) For the successful pilgrims on the second circuit the stimulus of evolutionary uncertainty is over, but the adventure of the eternal assignment has not yet begun; and while the sojourn on this circle is wholly pleasurable and highly profitable, it lacks some of the anticipative enthusiasm of the former circles. Many are the pilgrims who, at such a time, look back upon the long, long struggle with a joyous envy, really wishing they might somehow go back to the worlds of time and begin it all over again, just as you mortals, in approaching advanced age, sometimes look back over the struggles of youth and early life and truly wish you might live your lives over once again.

26:10.6 (296.2) But the traversal of the innermost circle lies just ahead, and soon thereafter the last transit sleep will terminate, and the new adventure of the eternal career will begin. The counselors and advisers on the second circle begin the preparation of their subjects for this great and final rest, the inevitable sleep which ever intervenes between the epochal stages of the ascendant career.

26:10.7 (296.3) When those ascendant pilgrim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complete the second-circle experience, their ever-attendant

인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는 자신의 상대자를 직접 안내하여 내부 궤도로 들어가고, 거기서 휴식 보완자의 보호 아래에 맡기는데, 그 보완자는 **하보나**의 세계 회로들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게 대한 사역에 배정된, 마지막 2차 최고스라빔 계층이다.

11. 휴식 보완자

마지막 회로에서 보내는 상승자의 시간 대부분은, 임박한 **낙원** 거주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방대하고 다양한 무리의 존재는, 대부분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 안쪽 고리에 있는 **하보나** 세계들의 영구 거주민과 임시 거주민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혼합은, 상승하는 필사자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풍성한 상황적 환경을 최고스라빔 휴식 보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특히 **낙원**에서 곧 만나게 될 많은 존재 집단에 적응하는 문제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

이 안쪽 회로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이 있다. 1차 및 2차 최고스라빔은, 이 아들들이 속한 공동 단체의 전반적 관리인인데, 필사 완결성취자들 가운데 삼자일체된 후손 및 **낙원 시민** 가운데 비슷한 자손을 포함한다. 이 아들들 중에서 일부는 연방정부에 포함되고 임명되며, 일부는 다양하게 배정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 **하보나** 회로의 완전한 세계들에 있는 공동 단체에 함께 모여 있다. 여기서, 최고스라빔의 감독 아래, 고등 **낙원 시민**의 특별하고 이름 없는 단체가, 어떤 미래 업무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이 **낙원 시민**은 **그랜한다** 시대 이전에 **영원 항존자**들의 첫째 행정 보좌관(輔佐官)이었다. 삼자일체된 존재 가운데 이 독특한 두 집단이, 먼 미래에 함께 일하게 되리라고 추측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들로 구성된 **낙원 단체**의 예비군이 되는 것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회로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양쪽이 서로, 그리고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상호 연합에서 큰 유익을 도출하며, 필사 완결성취자들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과, **낙원 시민**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단체를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것이 최고스라빔의 특별한 사명이다. 최고스라빔 휴식 보완자들은, 자신들의 훈련보다는, 다양한 집단과 분별 있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필사자들은: “너희의 **낙원 아버지**가 완전하신

Graduate Guides issue the order admitting them to the final circle. These guides personally pilot their subjects to the inner circle and there place them in the custody of the complements of rest, the last of those orders of secondary supernaphim assigned to the ministry of the pilgrims of time on the world circuits of Havona.

11. THE COMPLEMENTS OF REST

26:11.1 (296.4) Much of an ascender's time on the last circuit is devoted to a continuation of the study of the impending problems of Paradise residence. A vast and diverse host of beings, the majority unrevealed, are permanent and transient residents of this inner ring of Havona worlds. And the commingling of these manifold types provides the superaphic complements of rest with a rich situational environment which they effectively utilize in furthering the education of the ascending pilgri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adjustment to the many groups of beings soon to be encountered on Paradise.

26:11.2 (296.5) Among those who dwell on this inner circuit are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upernaphim are the general custodians of the conjoint corps of these sons, including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mortal finaliters and similar progeny of the Paradise Citizens. Certain of these sons are Trinity embraced and commissioned in the supergovernments, others are variously assigned, but the great majority are being gathered together in the conjoint corps on the perfect worlds of the inner Havona circuit. H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naphim, they are being prepared for some future work by a special and unnamed corps of high Paradise Citizens who were, prior to the times of Grandfanda, first executive assistants to the Eternals of Days. There are many reasons for conjecturing that these two unique groups of trinitized beings are going to work together in the remote future, not the least of which is their common destiny in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26:11.3 (296.6) On this innermost circuit, both the ascending and the descending pilgrims fraterniz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creature-trinitized sons. Like their parents, these sons derive great benefits from interassociation, and it is the special mission of the supernaphim to facilitate and to insure the confraternity of the trinitized sons of the mortal finaliters and the trinitized sons of the Paradise Citizens. The superaphic complements of rest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ir training as with promoting their understanding association with diverse groups.

26:11.4 (297.1) Mortals have received the Paradise command: “Be you perfect, even as your Paradise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낙원** 명령을 받았다. 감독하는 최고스라빔은, 삼자일체된 이 공동 단체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한다: “**낙원 창조주 아들**들이 너희의 상승하는 형제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이해하라.”

필사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이 사람을--곧 의지를 지닌 가장 낮은 피조물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들 및 그 필사 자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미래의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둘 다 체험적 우주 전체를 거치고, 그리하여 자신의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 우주들 전역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이 독특한 혼합, 즉 피조물과 **창조주**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 경솔한 필사자들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신성한 자비와 애정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해 왔다. 얼마나 큰 실수인가! 오히려, 인간이 자비와 관용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며; 결국 신성이 피조물을 자극한다는 증거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첫째 케도에서 체류가 끝날 때가 되면,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최고스라빔의 1차 계층인 휴식 선동자들을 처음 만난다. 이들은, 영원의 입구에서 있는 자들을 환영하고, 마지막 부활과 관련된 변환 수면상태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기 위해서 오는 **낙원** 천사들이다. 안쪽 케도를 다 지나가고, 시간세계의 마지막 수면으로부터 영원성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기 전까지, 너희는 실제로 **낙원**의 자녀가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들은, **하보나**의 첫째 케도에서 이 휴식을 시작하고 잠자게 되지만, **낙원** 기슭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상승한 모든 존재 중에서, 그렇게 도착한 자들만이 영원성 자녀이며; 나머지는 방문자로서, 즉 거주 신분을 갖지 않은 손님으로서 간다.

그리고 이제, **하보나** 생애의 절정에서, 너희 필사자들이 안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잠자게 될 때에는, 너희가 기원된 그 세계들에서 필사자가 눈을 감고 자연스런 죽음의 잠에 빠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하보나**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긴 운반 혼수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홀로 휴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달성을 위해서 휴식을 준비할 때, 첫째 케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너의 동역자가 네 옆으로 오는데, 그는 너의 변환이 완료됐음을, 그리고 네가 완성의 마지막 손길만 기다리고 있음을 보증하는 **하보나** 보증인으로서, 너와 하나 되어 휴식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위엄 있는 휴식 보완자다.

너희의 첫 변환은 정말로 죽음이었고, 둘째는 이상적인 수면상태였으며, 이제 셋째 변질은 참된 휴식, 즉 오랜만에 갖는 휴양이다.

Father is perfect.” To these trinitized sons of the conjoint corps the supervising supernaphim never cease to proclaim: “Be you understanding of your ascendant brethren, even as the Paradise Creator Sons know and love them.”

26:11.5 (297.2) The mortal creature must find God. The Creator Son never stops until he finds man — the lowest will creature. Beyond doubt, the Creator Sons and their mortal children are preparing for some future and unknown universe service. Both traverse the gamut of the experiential universe and so are educated and trained for their eternal mission. Throughout the universes there is occurring this unique blending of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commingling of creature and Creator. Unthinking mortals have referred to the manifestation of divine mercy and tenderness, especially towards the weak and in behalf of the needy, as indicative of an anthropomorphic God. What a mistake! Rather should such manifestations of mercy and forbearance by human beings be taken as evidence that mortal man is indwelt by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that the creature is, after all, divinity motivated.

26:11.6 (297.3) Near the end of the first-circle sojourn the ascending pilgrims first meet the instigators of rest of the primary order of supernaphim. These are the angels of Paradise coming out to greet those who stand at the threshold of eternity and to complete their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slumber of the last resurrection. You are not really a child of Paradise until you have traversed the inner circle and have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of eternity from the terminal sleep of time. The perfected pilgrims begin this rest, go to sleep, on the first circle of Havona, but they awaken on the shores of Paradise. Of all who ascend to the eternal Isle, only those who thus arrive are the children of eternity; the others go as visitors, as guests without residential status.

26:11.7 (297.4) And now, at the culmination of the Havona career, as you mortals go to sleep on the pilot world of the inner circuit, you go not alone to your rest as you did on the worlds of your origin when you closed your eyes in the natural sleep of mortal death, nor as you did when you entered the long transit trance preparatory for the journey to Havona. Now, as you prepare for the attainment rest, there moves over by your side your long-time associate of the first circle, the majestic complement of rest, who prepares to enter the rest as one with you, as the pledge of Havona that your transition is complete, and that you await only the final touches of perfection.

26:11.8 (297.5) Your first transition was indeed death, the second an ideal sleep, and now the third metamorphosis is the true rest, the relaxation of the ages.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26:11.9 (297.6)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27편. 1차 최고스라빔의 사역

⇨ 026

유랜시아 책

028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7편
1차 최고스라빔의 사역

섹션

소개

1. 휴식 선동자
2. 임무배정 우두머리
3. 윤리 해석가
4. 진행 지휘자
5. 지식 관리인
6. 철학의 스승
7. 경배 안내자

소개

1차 최고스라빔은, **낙원**의 영원한 **섬**에 있는 **신격**들의 숭고한 일꾼이다. 그들은 빛과 정의의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출석점호는 완성됐으며; 영원 전부터 이 장엄한 무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었다. 이 높은 최고스라빔은, 완전한 존재, 즉 최고의 완전성을 갖지만, 유한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본질이 완전하기 때문에, **무한한 영**의 이 자녀들은 자신의 다양한 임무의 모든 국면에서 서로 바뀌어서 자유자재로 활동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에서 1,000년마다 모이는 다양한 집회와 집단적 재결합에 참여하더라도, **낙원** 밖에서는 광범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신격**들의 특별 사자로서 나아가기도 하며, 많은 숫자가 **법해석 고문**으로 승격된다.

1차 최고스라빔은, 반역으로 인해 고립된 세계에서 사역하는 스랍 무리를 지휘하는 일에 배치되기도 한다. **낙원 아들이** 그런 세계에 증여되고, 사명을 완수하고, **만유의 아버지**께로 상승하고, 받아들여지고, 고립된 이 세계의 공인된 구원자로서 돌아오면, 새롭게 개선된 구체에서 근무하는

PAPER 27
MINISTRY OF THE PRIMARY
SUPERNAPHIM

SECTIONS

Introduction

1. Instigators of Rest
2. Chiefs of Assignment
3. Interpreters of Ethics
4. Directors of Conduct
5. The Custodians of Knowledge
6. Masters of Philosophy
7. Conductors of Worship

INTRODUCTION

27:0.1 (298.1) PRIMARY supernaphim are the supernal servants of the Deities o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Never have they been known to depart from the paths of light and righteousness. The roll calls are complete; from eternity not one of this magnificent host has been lost. These high supernaphim are perfect beings, supreme in perfection, but they are not absonite, neither are they absolute. Being of the essence of perfection, thes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work interchangeably and at will in all phases of their manifold duties. They do not function extensively outside Paradise, though they do participate in the various millennial gatherings and group reunion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also go forth as special messengers of the Deities, and in large numbers they ascend to become Technical Advisers.

27:0.2 (298.2) Primary supernaphim are also placed in command of the seraphic hosts ministering on worlds isolated because of rebellion. When a Paradise Son is bestowed upon such a world, completes his mission, ascends to the Universal Father, is accepted, and returns as the accredited

돌보는 영들을 지휘하도록,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1차 최고스라빔을 항상 지명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바지하는 최고스라빔은, 주기적으로 교대된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현 “스라빔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증여된 시기 이후로, 이 계층 중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는 자다.

1차 최고스라빔이 영원 전부터 **빛의 섬**에서 근무해 왔고, 공간의 세계들을 통솔하는 사명을 수행해 왔지만, 시간세계의 **하보나** 순례자들이 **낙원**에 도착한 이후로는, 오직 지금처럼 분류된 대로 활동해 왔다. 이 고등 천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일곱 봉사 계층에서 사역한다:

1. **경배 안내자.**
2. **철학의 스승.**
3. **지식 관리인.**
4. **진행 지휘자.**
5. **윤리 해석가.**
6. **임무배정 우두머리.**
7. **휴식 선동자.**

낙원 거주권을 실제로 달성하기까지,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최고스라빔의 직접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며, 그 후에는 이름을 붙이는 순서와는 반대로, 이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 체험을 쌓아간다. 다시 말해서, 너는 휴식 선동자들의 감독 아래서 **낙원** 생애를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계층들과 연속된 기간을 보낸 후에, 경배 인도자들과 함께 이 훈련기간을 마친다. 그 결과로, 너는 완결성취자의 끝없는 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

1. 휴식 선동자

휴식 선동자들은 **낙원**의 검열관인데, 중앙 **섬**에서 **하보나** 내부 회로로 나아가고, 거기서 그의 동업자, 즉 2차 계층의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휴식 보완자들과 협력한다. **낙원**을 즐기기에 필수적인 한 가지는, 휴식, 즉 신성한 휴식이며, 이 휴식 선동자들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영원으로 입문하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교관이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최종 달성 궤도에서 활동하고, 순례자가 마지막 변환 수면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데, 이 수면상태는 공간에 있는 피조물을 졸업시켜서 영원한 영역으로 보낸다.

휴식은 칠중 본성에 속하는데: 낮은 생명체 계층에는 수면 휴식과 놀이 휴식이 있고, 높은 존재

deliverer of this isolated world, a primary supernaphim is always designated by the chiefs of assignment to assume command of the ministering spirits on duty in the newly reclaimed sphere. Supernaphim in this special service are periodically rotated. On Urantia the present “chief of seraphim” is the second of this order to be on duty since the times of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27:0.3 (298.3) From eternity the primary supernaphim have served on the Isle of Light and have gone forth on missions of leadership to the worlds of space, but they have functioned as now classified only since the arrival on Paradise of the Havona pilgrims of time. These high angels now minister chiefly in the following seven orders of service:

- 27:0.4 (298.4) 1. Conductors of Worship.
- 27:0.5 (298.5) 2. Masters of Philosophy.
- 27:0.6 (298.6) 3. Custodians of Knowledge.
- 27:0.7 (298.7) 4. Directors of Conduct.
- 27:0.8 (298.8) 5. Interpreters of Ethics.
- 27:0.9 (298.9) 6. Chiefs of Assignment.
- 27:0.10 (298.10) 7. Instigators of Rest.

27:0.11 (298.11) Not until the ascending pilgrims actually attain Paradise residence do they come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se supernaphim, and then they pass through a training experience under the direction of these angels in the reverse order of their naming. That is, you enter upon your Paradise career under the tutelage of the instigators of rest and, after successive seasons with the intervening orders, finish this training period with the conductors of worship. Thereupon are you ready to begin the endless career of a finaliter.

1. INSTIGATORS OF REST

27:1.1 (299.1) The instigators of rest are the inspectors of Paradise who go forth from the central Isle to the inner circuit of Havona, there to collaborate with their colleagues, the complements of rest of the secondary order of supernaphim. The one essential to the enjoyment of Paradise is rest, divine rest; and these instigators of rest are the final instructors who make ready the pilgrims of time for their introduction to eternity. They begin their work on the final attainment circle of the central universe and continue it when the pilgrim awakes from the last transition sleep, the slumber which graduates a creature of space into the realm of the eternal.

27:1.2 (299.2) Rest is of a sevenfold nature: There is the rest of sleep and of play in the lower life orders,

에게는 발견이 있으며, 가장 높은 영 인격체 유형에게는 경배가 있다. 또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전형적 휴식, 즉 물리적 또는 영적 에너지로 존재들을 재충전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는 운반 수면, 즉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때 스라빔으로 둘러싸이는 무의식 수면상태가 있다.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변질되는 깊은 수면, 즉 한 존재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생애에서 다른 생애로, 한 실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는 휴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든지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 진화와는 반대로, 실제 우주 신분으로부터 변환할 때 늘 수반되는 수면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변질되는 수면은, 상승하는 생애 가운데 계속되는 신분 성취를 표시했던, 이전의 여러 변환 수면상태 이상의 어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에서 온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낙원** 거주지에서 거주 신분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공간적인 세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경계선을 지나간다. 휴식 선동자들 및 보완자들은, 필사 피조물이 죽음에서 생존할 때 스라빔 및 관련된 존재들이 필수였던 것과 똑같이, 이 초월적 변질에 필수다.

너는 마지막 **하보나** 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낙원**에서 영원히 부활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영적으로 다시 인격화 될 때,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에서 최종 수면상태로 들어가게 했던, 바로 그 1차 최고스라빔으로서, 너를 영원한 기쁨으로 환영해 인도하는 휴식 선동자를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며; **만유의 아버지**의 손에 너의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다시 한 번 위탁할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신앙의 거대한 확장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시간세계에서 마지막 휴식은 다 즐겼으며; 마지막 변환 수면상태는 이미 체험했으며; 이제 너는 영원한 거주지의 기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수면상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과 그 **아들**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영원토록 그의 봉사자이며; 그의 얼굴을 뵈 왔고, 그의 이름은 너희의 영(靈)이다.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항상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위대한 근원 및 중심**이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거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음도 없으며,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인데,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2. 임무배정 우두머리

이들은 이 천사들의 세 계층 -- 곧 1차, 2차, 및 3차--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원래의 원형(原型) 천사”인 최고스라빔 우두머리가 때때로 지명하는 집단이다. 이 영 인격체 전부를 언제든지 관장하는, **낙원**의 첫째 천사인 그들의 공동 우두머리의 역할을 제외하고, 최고스라빔은 한 조직체로서 전

discovery in the higher beings, and worship in the highest type of spirit personality. There is also the normal rest of energy intake, the recharging of beings with physical or with spiritual energy. And then there is the transit sleep, the unconscious slumber when enseraphimed, when in passage from one sphere to another. Entirely different from all of these is the deep sleep of metamorphosis, the transition rest from one stage of being to another, from one life to another, from one state of existence to another, the sleep which ever attends transition from actual universe *status* in contrast to evolution through various *stages* of any one status.

27.1.3 (299.3) But the last metamorphic sleep is something more than those previous transition slumbers which have marked the successive status attainments of the ascendant career; thereby do the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raverse the innermost margins of the temporal and the spatial to attain residential status in the timeless and spaceless abodes of Paradise. The instigators and the complements of rest are just as essential to this transcending metamorphosis as are the seraphim and associated beings to the mortal creature's survival of death.

27.1.4 (299.4) You enter the rest on the final Havona circuit and are eternally resurrected on Paradise. And as you there spiritually repersonalize, you will immediately recognize the instigator of rest who welcomes you to the eternal shores as the very primary supernaphim who produced the final sleep on the innermost circuit of Havona; and you will recall the last grand stretch of faith as you once again made ready to commend the keeping of your identity into the hands of the Universal Father.

27.1.5 (299.5) The last rest of time has been enjoyed; the last transition sleep has been experienced; now you awake to life everlasting on the shores of the eternal abode. “And there shall be no more sleep. The presence of God and his Son are before you, and you are eternally his servants; you have seen his face, and his name is your spirit. There shall be no night there; and they need no light of the sun, for the Great Source and Center gives them light; they shall live forever and ever. And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either sorrow nor crying, neither shall there be any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2. CHIEFS OF ASSIGNMENT

27.2.1 (300.1) This is the group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chief supernaphim, “the original pattern angel,” to preside over the organization of all three orders of these angels —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The supernaphim, as a body, are wholly self-governing and self-regulatory

적으로 스스로_통치하고 스스로_규제한다.

낙원의 영화롭게 된 필사 거주자들이 **완결성 취 단체**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임무배정 천사들은 그들과 많은 관계를 갖는다. 연구와 훈육만이 **낙원** 도착자들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며; 봉사 역시, **낙원**의 완결성취자_이전{以前}의 교육 체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임무배정 최고스랍 우두머리들의 예비 단체와 사귀기를 선호한다고 표명하는 것을 나는 목격해 왔다.

너희 필사 상승자들이 **낙원**에 도달하면, 너희의 사회관계는, 고양된 신성한 존재들 무리와 접촉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된 동료 필사자들로 구성된 친밀한 대중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포함한다. 너희는 또한, **낙원 시민**으로 구성된 3,000이 넘는 다른 계층, **초월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 그리고 **유란시아**에 계시된 바 없는 수많은 다른 유형의 영구적 및 일시적 **낙원** 거주자와 반드시 사귀게 된다. **낙원**의 이 강력한 지식인들과 일관된 접촉을 가진 후에, 천사 유형의 정신들을 매우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시간세계의 필사자에게, 그토록 오래 접촉했던, 그리고 상쾌한 연합체를 이뤘던 스라빔을 생각나게 한다.

except for the functions of their mutual chief, the first angel of Paradise, who ever presides over all these spirit personalities.

27:2.2 (300.2) The angels of assignment have much to do with glorified mortal residents of Paradise before they are admitted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Study and instruction are not the exclusive occupations of Paradise arrivals; service also plays its essential part in the prefinaliter educational experiences of Paradise. And I have observed that, when the ascendant mortals have periods of leisure, they evince a predilection to fraternize with the reserve corps of the superaphic chiefs of assignment.

27:2.3 (300.3) When you mortal ascenders attain Paradise, your societal relationships involve a great deal more than contact with a host of exalted and divine beings and with a familiar multitude of glorified fellow mortals. You must also fraternize with upwards of three thousand different orders of Paradise Citizens, with the various groups of the Transcendentals, and with numerous other types of Paradise inhabitants, permanent and transient, who have not been revealed on Urantia. After sustained contact with these mighty intellects of Paradise, it is very restful to visit with the angelic types of mind; they remind the mortals of time of the seraphim with whom they have had such long contact and such refreshing association.

3. 윤리 해석가

인생의 계단을 높이 올라갈수록, 너희는 우주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리 의식이란, 어떤 개인이든지, 모든 다른 개인 실존에 내재된 그 권리를 인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적 윤리는, 개인 및 집단 관계에 대한 필사자 개념, 그리고 심지어 모론시아 개념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낙원**의 영광을 향해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윤리를 충분히 교육받았고 적절히 배워 왔다. 공간의 출생 세계로부터 안쪽으로_상승하는 이 생애가 펼쳐짐에 따라서, 상승자들은 우주 동료 모임에 여러 집단을 연달아 추가시킴으로써 계속_넓혀 왔다. 새 동료 집단을 만날 때마다, 인식하고 동의해야 할 또 하나의 윤리 수준이 추가되는데,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에 도착할 때가 되어, 윤리 해석에 관계되는 유익하고 친근한 조언을 제공할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많은 새로운 것과 접촉할 대단한 과제에 부딪칠 때,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며 배운 것을 그들에게 적절히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3. INTERPRETERS OF ETHICS

27:3.1 (300.4) The higher you ascend in the scale of life, the more attention must be paid to universe ethics. Ethical awareness is simply the recognition by any individual of the rights inherent in the existence of any and all other individuals. But spiritual ethics far transcends the mortal and even the morontia concept of personal and group relations.

27:3.2 (300.5) Ethics has been duly taught and adequately learned by the pilgrims of time in their long ascent to the glories of Paradise. As this inward-ascending career has unfolded from the nativity worlds of space, the ascenders have continued to add group after group to their ever-widening circle of universe associates. Every new group of colleagues met with adds one more level of ethics to be recognized and complied with until, by the time the mortals of ascent reach Paradise, they really need someone to provide helpful and friendly counsel regarding ethical interpretations. They do not need to be taught ethics, but they do need to have what they have so laboriously learned properly *interpreted* to them as they are brought face to face with the extraordinary task of contacting with so much that is new.

윤리 해석가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낙원** 도착자들을 지원하는데, 거주 신분 획득에서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 모집되기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그 기간에, 수많은 집단의 위엄 있는 존재들에게 적응하도록 그들을 도와준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수많은 유형의 **낙원 시민** 대부분을 이미 일곱 **하보나** 회로에서 만났다.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또한 **하보나** 안쪽 회로에 있는 공동 단체에 속한,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누려 왔는데, 이 존재들은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회로들에서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낙원 하보나** 체계의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거주자{居住者}를 만났는데, 그들은 거기서, 아직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임무를 준비하면서 집단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천상의 동무관계는 항상 상호적이다. 너희는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연속해서 만나는 이런 우주 동무로부터, 그리고 그런 수많은 계층의 점점 더 신성해지는 동역자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자신의 인격과 체험에서 얻은 무언가를 형제 같은 이 존재들 각자에게 나눠 주는데, 왜냐하면 그 체험은 언제나 그들 각자를 다르게 만들고 더 낫게 만들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와 교제해 왔기 때문이다.

4. 진행 지휘자

낙원 관계의 윤리에 대해--곧 무의미한 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 계급제도의 명령도 아닌, 오히려 내재적인 타당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으므로, 상승한 필사자들은 최고스럽인 진행 지휘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하는데, 이 지휘자들은 중앙의 **빛과 생명의 섬**에 머무는 고등 존재들의 완전한 진행 관례를, **낙원** 사회의 새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중앙우주의 기본은 조화{調和}이며, 탐지 가능한 질서가 **낙원**을 지배한다. 적절한 진행은, 지식을 경유해서, 철학을 통과하고, 자발적으로 경배 드리는 영적 최고봉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데 필수다. **신성**{神性}에 접근하는 신성한 기법이 있으며, 순례자들은 **낙원**에 도착할 때에야 이 기법을 획득한다. 그 기법의 참 뜻을 **하보나** 퀘도들에서 전해 들었지만,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들이 실제로 **빛의 섬**에 도달한 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

낙원에서 모든 진행은 전적으로 자발적인데,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그러나 영원한 **섬**에서 일을 처리하는, 적절하고 완전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진행 지휘자들은, “문 안에 있는 낯선 자들” 옆에 항상 서서 그들을 가르치고 발걸

27:3.3 (300.6) The interpreters of ethics are of inestimable assistance to the Paradise arrivals in helping them to adjust to numerous groups of majestic beings during that eventful period extending from the attainment of residential status to formal induction in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Many of the numerous types of Paradise Citizens the ascendant pilgrims have already met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The glorified mortals have also enjoyed intimate contact with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f the conjoint corps on the inner Havona circuit, where these beings are receiving much of their education. And on the other circuits the ascending pilgrims have met numerous unrevealed resident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who are there pursuing group 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unrevealed assignments of the future.

27:3.4 (301.1) All these celestial companionships are invariably mutual. As ascending mortals you not only derive benefit from these successive universe companions and such numerous orders of increasingly divine associates, but you also impart to each of these fraternal beings something from your own personality and experience which forever makes every one of them different and better for having been associated with an ascending mortal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4. DIRECTORS OF CONDUCT

27:4.1 (301.2) Having already been fully instructed in the ethics of Paradise relationships — neither meaningless formalities nor the dictations of artificial castes but rather the inherent proprieties — the ascendant mortals find it helpful to receive the counsel of the superaphic directors of conduct, who instruct the new members of Paradise society in the usages of the perfect conduct of the high beings who sojourn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27:4.2 (301.3) Harmony is the keynote of the central universe, and detectable order prevails on Paradise. Proper conduct is essential to progress by way of knowledge, through philosophy, to the spiritual heights of spontaneous worship. There is a divine technique in the approach to Divinity; and the acquirement of this technique must await the pilgrims' arrival on Paradise. The spirit of it has been imparted on the circles of Havona, but the final touches of the training of the pilgrims of time can be applied only after they actually attain the Isle of Light.

27:4.3 (301.4) All Paradise conduct is wholly spontaneous, in every sense natural and free. But there still is a proper and perfect way of doing things on the eternal Isle, and the directors of conduct are ever by the side of the “strangers

음을 인도함으로써 완전한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순례자가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오직 그런 배려로 말미암아, 끝없는 혼돈을 피할 수 있으며, **낙원**에서는 혼돈이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이 진행 지휘자들은, 정말로 영화롭게 된 선생이자 안내자로서 근무한다. 그들은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상황과 생소한 관습에 대해 새로운 필사 거주자들을 가르치기에 주로 관여한다. 그 여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게다가 긴 여행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거주 신분을 획득한 그들에게, **낙원**은 여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다.

5. 지식 관리인

지식 관리인들은 최고스랍인데, **낙원**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가 알고 읽는, 고등{高等}의 “살아있는 편지”이다. 그들은 신성한 진리의 기록, 즉 살아있는 참된 지식의 책이다. 너희는 “생명의 책” 속에 있는 기록에 관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지식 관리인들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책, 즉 신성한 생명과 최상의 확실성을 갖는 영원한 서판에 새겨진 완전한 기록이다. 그들은 실체 속에 살아있는 자동 도서관이다. 우주들에 대한 사실은 이 1차 최고스라빔에 내재적인데, 이 천사들 안에 실제로 기록돼 있으며; 영원한 진리와 시간세계의 정보를 담은, 이 완전하고 충분한 저장소의 정신 속에, 허위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역시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관리인들이 영원한 **심** 거주자를 위한 비공식 훈육 과정을 운영하지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참조와 확인이다. **낙원**에 머무는 어떤 존재든지,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특별한 사실 또는 진리가 담긴 살아있는 저장고를 자기 옆에 마음대로 둘 수 있다. 그 **심**의 가장 북쪽에는 살아있는 지식 습득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찾은 정보를 간직한 집단의 지휘자들을 지명할 것이며, 네가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 찬란한 존재들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너는 몰두하고 있는 책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으며; 이제 너는 살아있는 지성체와 직접 대면해 사귄다. 그리하여 너는 지식의 최종 관리인인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획득한다.

네가 확인하려는 그것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최고스라빔의 위치를 확인할 때, 너는 전체 우주에 알려진 유효한 사실 전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지식 관리인들은,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의 스라빔과 제2스라빔부터, **하보나**에 있는 3차 최고스라빔에 해당하는 기록원 우두머리들에 이르기까지, 기록하는 천사들의 방대한 연결조직 중에서 최종적이고 살아있는 일람표{一覽表}이기 때

within the gates” to instruct them and so guide their steps as to put them at perfect ease and at the same time to enable the pilgrims to avoid that confusion and uncertainty which would otherwise be inevitable. Only by such an arrangement could endless confusion be avoided; and confusion never appears on Paradise.

27:4.4 (301.5) These directors of conduct really serve as glorified teachers and guides. They are chiefly concerned with instructing the new mortal residents regarding the almost endless array of new situations and unfamiliar usages. Notwithstanding all the long preparation therefor and the long journey thereto, Paradise is still inexpressibly strange and unexpectedly new to those who finally attain residential status.

5. THE CUSTODIANS OF KNOWLEDGE

27:5.1 (301.6) The superaphic custodians of knowledge are the higher “living epistles” known and read by all who dwell on Paradise. They are the divine records of truth, the living books of real knowledge. You have heard about records in the “book of lif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are just such living books, records of perfection imprinted upon the eternal tablets of divine life and supreme surety. They are in reality living, automatic libraries. The facts of the universes are inherent in these primary supernaphim, actually recorded in these angels; and it is also inherently impossible for an untruth to gain lodgment in the minds of these perfect and replete repositories of the truth of eternity and the intelligence of time.

27:5.2 (302.1) These custodians conduct informal courses of instruction for the residents of the eternal Isle, but their chief function is that of reference and verification. Any sojourner on Paradise may at will have by his side the living repository of the particular fact or truth he may wish to know. At the northern extremity of the Isle there are available the living finders of knowledge, who will designate the director of the group holding the information sought, and forthwith will appear the brilliant beings who are the very thing you wish to know. No longer must you seek enlightenment from engrossed pages; you now commune with living intelligence face to face. Supreme knowledge you thus obtain from the living beings who are its final custodians.

27:5.3 (302.2) When you locate that supernaphim who is exactly what you desire to verify, you will find available all the known facts of all universes, for these custodians of knowledge are the final and living summaries of the vast network of the recording angels, ranging from the seraphim and seconaphim of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to the chief recorde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in Havona. And this living accumulation of knowledge

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지식 축적은, **낙원**의 공식 기록과는 달리, 우주 역사의 누적된 요약이다.

진리의 지혜는 중앙우주의 신성{神性}에서 기원되지만, 지식, 즉 체험적 지식은 주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영도에서 시작된다--따라서, **천상의 기록원**들이 후원하는, 기록하는 스라빔 및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광범한 연방우주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주 지식을 선천적으로 소유하는 이 1차 최고스라빔은, 그 지식을 조직하고 분류하는 것 역시 책임진다. 자신들을 온갖 우주의 살아있는 참고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그들은 지식을 7개의 주요 계층으로 분류해 왔는데, 각 계층은 약 100만 개의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다. **낙원** 거주민이 이 방대한 지식 비축물(備蓄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 관리인들의 자발적이고도 현명한 노력 덕분이다. 이 관리인들은 또한 중앙우주의 고양된 선생이기도 한데, **하보나** 회로 가운데 어디서든지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서 광대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도서관을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 창조계는 접근할 수 없다. 오직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사성을 통해서만, **낙원** 지식의 혜택이 지방우주들에서 보장된다.

6. 철학의 스승

경배로 얻는 최상의 만족 바로 밑에는 철학{哲學}의 유쾌함이 있다. 너희는, 시도된 해결책으로 철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신비 가운데 천여가지가 남을 정도까지, 그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결코 없었다.

낙원의 으뜸 철학자들은,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토착 거주민과 상승 거주민의 정신을 인도하기를 기뻐한다. 최고스라빔인 이 철학의 스승들은, “하늘의 지혜자들”, 즉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애쓸 때, 지식이 된 진리와 체험한 사건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존재다. 그들과 함께 하면, 지식은 진리에 도달하고, 체험은 지혜 수준으로 올라간다. 공간에서 상승하는 인격체들은, **낙원**에서 존재의 절정을 체험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며; 진리를 알며; 철학적으로 사색할--곧 진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 **궁극자**의 개념을 획득하고자 애쓰고, 심지어 **절대자**들의 기법을 파악하려고 애쓸 수도 있다.

방대한 **낙원** 영도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철

is distinct from the formal records of Paradise, the cumulative summary of universal history.

27:5.4 (302:3) The wisdom of truth takes origin in the divinity of the central universe, but knowledge, experiential knowledge, largely has its beginnings in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 therefore the necess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far-flung superuniverse organizations of the recording seraphim and supernaphim sponsored by the Celestial Recorders.

27:5.5 (302:4) These primary supernaphim who are inherently in possession of universe knowledge are also responsible for its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 In constituting themselves the living reference libra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y have classified knowledge into seven grand orders, each having about one million subdivisions. The facility with which the residents of Paradise can consult this vast store of knowledge is solely due to the voluntary and wise efforts of the custodians of knowledge. The custodians are also the exalted teachers of the central universe, freely giving out their living treasures to all beings on any of the Havona circuits, and they are extensively, though indirectly, utilized by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But this living library, which is available to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is not accessible to the local creations. Only by indirection and reflectively are the benefits of Paradise knowledge secured in the local universes.

6. MASTERS OF PHILOSOPHY

27:6.1 (302:5) Next to the supreme satisfaction of worship is the exhilaration of philosophy. Never do you climb so high or advance so far that there do not remain a thousand mysteries which demand the employment of philosophy in an attempted solution.

27:6.2 (302:6) The master philosophers of Paradise delight to lead the minds of its inhabitants, both native and ascendant, in the exhilarating pursuit of attempting to solve universe problems. These superaphic masters of philosophy are the “wise men of heaven,” the beings of wisdom who make use of the truth of knowledge and the facts of experience in their efforts to master the unknown. With them knowledge attains to truth and experience ascends to wisdom. On Paradise the ascendant personalities of space experience the heights of being: They have knowledge; they know the truth; they may philosophize — think the truth; they may even seek to encompass the concepts of the Ultimate and attempt to grasp the techniques of the Absolutes.

27:6.3 (303:1) At the southern extremity of the vast

학의 스승들이 지혜의 70가지 기능 부서에서 공들인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무한성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강연하고, 자신의 지혜에 접근해 온 모든 존재의 체험을 조화시키고 지식을 다듬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다양한 우주 문제에 관해 몹시 전문화된 입장을 개발해 왔지만, 그들의 최종 결론은 항상 한결같이 일치한다.

이 **낙원** 철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훈육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하보나**의 고등 도형{圖形} 기법,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낙원** 방법을 포함한다. 지식을 전하고 개념을 알리는 이 모든 고등 기법은, 심지어 최고도로 발달된 인간 정신의 납득 수용력조차 철저히 벗어난다. **낙원**에서 한 시간 훈육받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1만 년 동안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런 통신 기법을 파악할 수 없으며, 단지 인간 체험에서 아무 것도 이 기법과 비교될 수 없을 뿐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도 전혀 없다.

철학의 스승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상승해 온 존재들에게, 온갖 우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철학의 결론은, 아는 사실과 체험한 진리처럼 확정적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해결되지 않은 영원성의 문제와 **절대자**들의 업적에 대한 이 1차 최고스라빔의 강연에 귀를 기울일 때, 정복되지 않은 이 질문에 관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낙원의 이 지적 추구는 방송되지 않으며, 완전한 철학은 몸소 거기 현존하는 그들에게만 가능하다. 둘러싸는 창조계는, 오직 이 체험을 이미 겪은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를 공간에 있는 우주들 쪽으로 갖고 나간 자들로부터만 이 교훈을 배운다.

7. 경배 안내자

경배는 창조된 모든 지성체의 가장 고상한 특권인 동시에 첫째 의무다. 경배는, **창조주**들이 피조물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진리와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의식적{意識的}이고 즐거운 행동이다. 경배의 질은 피조물이 인지하는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며, **하나님**들의 무한한 성품을 더 알게 됨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체험적 환희와 가장 절묘한 기쁨의 영광을 결국 달성할 때까지, 경배 행위는 점점 더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

Paradise domain the masters of philosophy conduct elaborate courses in the seventy functional divisions of wisdom. Here they discourse upon the plans and purposes of Infinity and seek to co-ordinate the experiences, and to compose the knowledge, of all who have access to their wisdom. They have developed a highly specialized attitude toward various universe problems, but their final conclusions are always in uniform agreement.

27:6.4 (303.2) These Paradise philosophers teach by every possible method of instruction, including the higher graph technique of Havona and certain Paradise methods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All of these higher techniques of imparting knowledge and conveying ideas are utterly beyond the comprehension capacity of even the most highly developed human mind. One hour's instruction on Paradise would be the equivalent of ten thousand years of the word-memory methods of Urantia. You cannot grasp such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there is simply nothing in mortal experience with which they may be compared, nothing to which they can be likened.

27:6.5 (303.3) The masters of philosophy take supreme pleasure in imparting their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those beings who have ascended from the worlds of space. And while philosophy can never be as settled in its conclusions as the facts of knowledge and the truths of experience, yet, when you have listened to these primary supernaphim discourse upon the unsolved problems of eternity and the 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you will feel a certain and lasting satisfaction concerning these unmastered questions.

27:6.6 (303.4) These intellectual pursuits of Paradise are not broadcast; the philosophy of perfection is available only to those who are personally present. The encircling creations know of these teachings only from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is experience, and who have subsequently carried this wisdom out to the universes of space.

7. CONDUCTORS OF WORSHIP

27:7.1 (303.5) Worship is the highest privilege and the first duty of all created intelligences. Worship is the conscious and joyous act of recognizing and acknowledging the truth and fact of the intimate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Creators with their creatures. The quality of worship is determined by the depth of creature perception; and as the knowledge of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Gods progresses, the act of worship becomes increasingly all-encompassing until it eventually attains the glory of the highest experiential delight and the most exquisite pleasure known to created beings.

낙원 섬에 특별한 경배 장소가 있지만, 그것은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대한 예배실에 더 가깝다. 경배는 더없이 행복한 기쁨에 올라온 모든 존재의 첫째 및 지배적 열정이다--**하나님**의 현존에 도달하고자 그를 충분히 배워온 존재들에게서 저절로 끓어오르는 감정이다. 궤도에서 궤도로, **하보나**를 통해서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경배는 **낙원**에서 그 표현을 지도하고 달리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될 때까지 자라가는 열정이다.

낙원에서 즐기는 최고의 예찬과 영적 찬양의 주기적, 자발적, 집단적, 및 기타 특이한 분출은, 1차 최고스라빔 중에서 특별한 단체의 지휘 아래서 진행된다. 이 경배 안내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경의는 피조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목표를 성취하며, 고상한 자기_표현과 개인적 즐거움의 완전한 절정에 도달한다. 모든 1차 최고스라빔은 경배 안내자가 되기를 갈망하며;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주기적으로 이 회중을 해산시키지 않는다면, 상승한 존재는 모두 경배 자세로 영원히 남아있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어떤 존재도, 경배에서 자신이 충분한 만족감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영원히 봉사하는 임무배정에 임하도록 결코 요구받지 않는다.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어떻게 경배 드릴 것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아를_표현하는 이 만족감을 얻게 하고, 동시에 **낙원** 체제의 기본 활동에 관심을 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배 안내자들의 과제다. 경배 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성적 이해와 고조되는 감사의 감정을, **낙원**에 도착한 평범한 필사자가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표현하기까지, 수백 년 소요될 것이다. 경배 안내자들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표현 기법들을 전개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나고 시간이라는 산통을 겪은 이 놀라운 자녀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경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낙원 신격들에 대한 경배에서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전체 우주의 모든 존재의 온갖 예술이 사용되는데, 그 예술은 자아를_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재능을 강화하고 고양시킬 수 있다. 경배는 **낙원** 실존의 가장 **고상한 기쁨**이며;상쾌하게 하는 **낙원** 오락이다. 이 땅에서 너희 지친 정신에게 오락이 주는 것을, **낙원**에서는 완전하게 된 너희 혼에게 경배가 제공할 것이다. **낙원**의 경배 방식은 필사자의 납득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 참뜻은 너희가 여기 **유란시아**에서도 헤아릴 수 있는데, **하나님**들의 영이 지금도 너희에게 내주하고, 너희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영감을 줘서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낙원에서는 경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27.7.2 (303.6) While the Isle of Paradise contains certain places of worship, it is more nearly one vast sanctuary of divine service. Worship is the first and dominant passion of all who climb to its blissful shores — the spontaneous ebullition of the beings who have learned enough of God to attain his presence. Circle by circle, during the inward journey through Havona, worship is a growing passion until on Paradise it becomes necessary to direct and otherwise control its expression.

27.7.3 (304.1) The periodic, spontaneous, group, and other special outbursts of supreme adoration and spiritual praise enjoyed on Paradise are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a special corps of primary supernaphim. Under the direction of these conductors of worship, such homage achieves the creature goal of supreme pleasure and attains the heights of the perfection of sublime self-expression and personal enjoyment. All primary supernaphim crave to be conductors of worship; and all ascendant beings would enjoy forever remaining in the attitude of worship did not the chiefs of assignment periodically disperse these assemblages. But no ascendant being is ever required to enter upon the assignments of eternal service until he has attained full satisfaction in worship.

27.7.4 (304.2) It is the task of the conductors of worship so to teach the ascendant creatures how to worship that they may be enabled to gain this satisfaction of self-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be able to give attention to the essential activities of the Paradise regime. Without improvement in the technique of worship it would require hundreds of years for the average mortal who reaches Paradise to give full and satisfactory expression to his emotions of intelligent appreciation and ascendant gratitude. The conductors of worship open up new and hitherto unknown avenues of expression so that these wonderful children of the womb of space and the travail of time are enabled to gain the full satisfactions of worship in much less time.

27.7.5 (304.3) All the arts of all the beings of the entire universe which are capable of intensifying and exalting the abilities of self-expression and the conveyance of appreciation, are employed to their highest capacity in the worship of the Paradise Deities. *Worship is the highest joy of Paradise existence*; it is the refreshing play of Paradise. What play does for your jaded minds on earth, worship will do for your perfected souls on Paradise. The mode of worship on Paradise is utterly beyond mortal comprehension, but the spirit of it you can begin to appreciate even down here on Urantia, for the spirits of the Gods even now indwell you, hover over you, and inspire you to true worship.

27.7.6 (304.4) There are appointed times and places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섬**을 향해 체험함으로 상승하는 빛나는 존재들의 지성이 성장하고 신성{神性} 인식이 팽창함으로써 계속_증가하여 넘치는 영적 감정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랜한다** 시대 이후로 어느 때든지, **낙원**에서 최고스라빔은 경배의 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언제나 경건함이 초과한다. 그리고 이것은, 낮은 시간과 공간 세계들의 깊은 영적 무지{無知}로부터, **낙원** 영광을 향해 위로, 그들의 길을 천천히 수고롭게 올라온 존재들이 나타내는 엄청난 영적{靈的} 감동의 반응을, 선천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들이 결코 온전히 음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세계에서 온 그런 천사와 필사자들이 **낙원 권능자들** 앞에 도달할 때, 오랜 세월 동안 누적했던 감동이 터져 나오는데, **낙원** 천사들을 몹시 놀라게 하고, **낙원 신격들** 안에 신성한 만족감이 생기게 하는, 최고로 기쁜 광경이다.

때로는 경건한 영적 표현의 압도적인 물결 속에 **낙원** 전체가 휩싸이게 된다. 경배 안내자들은 종종 **신격** 거주지의 빛이 삼중으로 굽이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런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낙원** 거주자, 즉 영광스런 완전한 시민 및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피조물이 진지하게 경배 드림으로써, **하나님들**의 신성한 심정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만족됨을 의미한다. 얼마나 성공적인 기법인가! 피조 자녀의 지성적 사랑이 **창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충만한 만족감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및 목적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가!

경배의 충만함이라는 최고의 만족감을 달성한 후에, 너희는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상승 생애는 거의 완료됐고, 일곱째 축제가 준비된다. 첫 축제는 생존하는 목적이 확인될 때 **사고 조율사**와 필사자의 계약을 표시한 것이며; 둘째는 모론시아 생애 속에서 깨났을 때이며; 셋째는 **사고 조율사**와 융합한 것이며; 넷째는 **하보나**에서 깨어났을 때이며; 다섯째는 **만유의 아버지**를 찾아냈음을 축하했을 때이며; 여섯째 축제는 시간세계의 마지막 운반 수면상태에서 깨어나는 **낙원** 사건이 있을 때였다. 일곱째 축제는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로 들어간 것과 영원한 봉사가 시작된 것을 표시한다. 완결성취자가 일곱째 단계의 영적{靈的} 깨달음을 달성하는 것은, 아마 영원성의 축제들 중에서 첫 축제를 거행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하여 **낙원** 최고스라빔, 즉 사역하는 전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들은 우주의 한 부류로서, 너희가 영원한 **삼위일체** 서약을 마치고, **필사 완결성취 단체** 안으로 소집되면서, 경배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최

for worship on Paradise, but these are not adequate to accommodate the ever-increasing overflow of the spiritual emotions of the growing intelligence and expanding divinity recognition of the brilliant beings of experiential ascension to the eternal Isle. Never since the times of Grandfanda have the supernaphim been able fully to accommodate the spirit of worship on Paradise. Always is there an excess of worshipfulness as gauged by the preparation therefor. And this is because personalities of inherent perfection never can fully appreciate the tremendous reactions of the spiritual emotions of beings who have slowly and laboriously made their way upward to Paradise glory from the depths of the spiritual darkness of the lower worlds of time and space. When such angels and mortals of time attain the presence of the Powers of Paradise, there occurs the expression of the accumulated emotions of the ages, a spectacle astounding to the angels of Paradise and productive of the supreme joy of divine satisfaction in the Paradise Deities.

27.7.7 (304.5) Sometimes all Paradise becomes engulfed in a dominating tide of spiritual and worshipful expression. Often the conductors of worship cannot control such phenomena until the appearance of the threefold fluctuation of the light of the Deity abode, signifying that the divine heart of the Gods has been fully and completely satisfied by the sincere worship of the residents of Paradise, the perfect citizens of glory and the ascendant creatures of time. What a triumph of technique! What a fruition of the eternal plan and purpose of the Gods that the intelligent love of the creature child should give full satisfaction to the infinite love of the Creator Father!

27.7.8 (305.1) After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satisfaction of the fullness of worship, you are qualified fo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 ascendant career is well-nigh finished, and the seventh jubilee prepares for celebration. The first jubilee marked the mortal agreement with the Thought Adjuster when the purpose to survive was sealed; the second was the awakening in the morontia life; the third was the fus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the fourth was the awakening in Havona; the fifth celebrated the finding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sixth jubilee was the occasion of the Paradise awakening from the final transit slumber of time. The seventh jubilee marks entrance into the mortal finaliter corps and the beginning of the eternity service. The attainment of the seventh stage of spirit realization by a finaliter will probably signalize the celebration of the first of the jubilees of eternity.

27.7.9 (305.2) And thus ends the story of the Paradise supernaphim, the highest order of all the ministering spirits, those beings who, as a universal class, ever attend you from the world of your origin until you are finally bidden farewell by

중 작별을 고할 때까지, 너희가 기원된 세계에서
부터 너희와 계속 동행한다.

낙원 삼위일체를 끝없이 섬기는 일이 막 시작
되려고 하며; 이제 완결성취자는 **궁극자 하나님**을
만나는 목표에 직면{直面}한다.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the conductors of worship as you take the Trinity
oath of eternity an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27:7.10 (305.3) The endless service of the Paradise
Trinity is about to begin; and now the finaliter is
face to face with the challenge of God the
Ultimate.

27:7.11 (305.4)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28편.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

⇨ 027

유랜시아 책

029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8편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

섹션

소개

1. 제3스라빔
2. 전스라빔
3. 제2스라빔
4. 1차 제2스라빔
5. 2차 제2스라빔
6. 3차 제2스라빔
7. 제2스라빔의 사역

소개

최고스라빔이 중앙우주의 천사 무리이고, 스라빔이 지방우주의 천사 무리인 것처럼,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를 돌보는 영(靈)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에서 그리고 지존성 잠재력에서, **반사하는 영**들의 이 자녀는 스라빔보다는 최고스라빔과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연방창조물에서 홀로 근무하지 않으며, 그들의 계시되지 않은 동역자들이 후원하는 처리사항은 수없이 많은 동시에 흥미를 자아낸다.

본 문서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방우주를 돌보는 영은 다음과 같은 세 계층을 포함한다:

1. **제2스라빔**.
2. **제3스라빔**.
3. **전{全}스라빔**.

마지막 두 계층은 필사자 진보라는 상승 요강과 직접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제2스라빔에 대해서 더 확장된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논의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제3스라빔뿐 아니라 전{全}스라빔도 연방우주들에서 영 사역자로서 근무

PAPER 28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ertiaphim
2. The Omniaphim
3. The Seconaphim
4. The Primary Seconaphim
5. The Secondary Seconaphim
6. The Tertiary Seconaphim
7. Ministry of the Seconaphim

INTRODUCTION

28:0.1 (306.1) AS THE supernaphim are the angelic host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eraphim of the local universes, so are the seconaphim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In degree of divinity and in potential of supremacy, however, thes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are much more like supernaphim than seraphim. They serve not alone in the supercreations, and both numerous and intriguing are the transactions sponsored by their unrevealed associates.

28:0.2 (306.2) As presented in these narratives,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embrace the following three orders:

28:0.3 (306.3) 1. The Seconaphim.

28:0.4 (306.4) 2. The Tertiaphim.

28:0.5 (306.5) 3. The Omniaphim.

28:0.6 (306.6) Since the latter two orders are not so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they will be briefly discussed prior to the more extended consideration of seconaphim. Technically, neither tertiaphim nor

무하지만, 연방우주 출신의 돌보는 영은 아니다.

omniaphim ar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though both serve as spirit ministers in these domains.

1. 제3스라빔

이 고등 천사들은 연방우주 본부에 기록돼 있고, 지방 창조계에서 근무함에도, 엄밀히 말하면, 지방우주 원주민이 아닌 까닭에, 이 연방우주 수도의 거주민이다. 제3스라빔은 **무한한 영**의 자녀이며, 1,000명씩 무리지어 **낙원**에서 인격화된다. 신성한 독창성과 최상에 가까운 다재다능한 이 숭고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에게 수여된, **무한한 영**의 선물이다.

미가엘 아들이 **낙원**의 아버이 체제로부터 분리되고 공간에서 우주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됐을 때, **무한한 영**은 1,000명에 이르는 이 동행{同行}하는 영 집단을 배출한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이 우주를 조직하는 모험을 시작할 때, 이 장엄한 제3스라빔이 따라간다.

우주가 건축되던 초기 시절 내내, 1,000명의 이 제3스라빔이 **창조주 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진이다. 그들은 우주 조립 및 다른 천문학상 조종이 일어나는 이 활발한 시대 동안, **아들**의 보좌관{輔佐官}으로서 중대한 체험을 한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첫 태생인 **빛나는 새벽별**이 인격화 되는 날까지, **창조주 아들** 곁에서 섬긴다. 그 후에 즉시, 제3스라빔의 공식 사임{辭任}이 제출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원주민 천사 생명체 가운데 첫 계층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들은 지방우주의 현행 근무에서 물러나고, 그 전에 배속됐던 **창조주 아들**, 그리고 관련된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 사이를 연락하는 사역자가 된다.

2. 전스라빔

일급 최상급 행정관과 접촉함으로써 **무한한 영**이 전{全}스라빔을 창조하며, 그들은 바로 이 **최상급 행정관**들의 전속 하인 및 사자{使者}다. 전스라빔은 광우주에서 임무배정을 받으며,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의 단체가 **우버사** 북쪽 부분에 본부를 유지하는데, 특별 우대{優待} 거류민으로서 거기에 거주한다. 그들은 **우버사**에 등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도 배속돼 있지 않다. 또한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상승 기획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

전스라빔은, **일급 최상급 행정관**의 관점으로 경영상 협조를 위해서 연방우주들을 감독하는 일

1. THE TERTIAPHIM

28:1.1 (306.4) These high angels are of recor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and despite service in the local creations, technically they are residents of these superuniverse capitals inasmuch as they are not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Tertiaphim ar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and are personalized on Paradise in groups of one thousand. These supernal beings of divine originality and near-supreme versatility are the gift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Creator Sons of God.

28:1.2 (306.5) When a Michael Son is detached from the parental regime of Paradise and is made ready to go forth on the universe adventure of space, the Infinite Spirit is delivered of a group of one thousand of these companion spirits. And these majestic tertiaphim accompany this Creator Son when he embarks upon the adventure of universe organization.

28:1.3 (306.6) Throughout the early times of universe building, these one thousand tertiaphim are the only personal staff of a Creator Son. They acquire a mighty experience as Son assistants during these stirring ages of universe assembling and other astronomical manipulations. They serve by the side of the Creator Son until the day of the personalization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first-born of a local universe. Thereupon the formal resignations of the tertiaphim are tendered and accepted. A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initial orders of native angelic life, they retire from active service in the local universe and become the liaison ministers between the Creator Son of former attachment and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2. THE OMNIAPHIM

28:2.1 (307.1) Omniaphim are created by the Infinite Spirit in liaison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are the exclusive servants and messengers of these same Supreme Executives. Omniaphim are of grand universe assignment, and in Orvonton their corps maintains headquarters in the northerly parts of Uversa, where they reside as a special courtesy colony. They are not of registry on Uversa, nor are they attached to our administration.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28:2.2 (307.2) The omniaphim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oversight of the superuniverses in the

에만 온전히 전념한다. **우버사**에 있는 우리 전스라빔 거류민은, 오직 **오르본톤의 최상급 행정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에게만 보고하는데, 그는 **낙원** 위성 중에서 바깥쪽 고리에 있는 7_번 공동 행정 세계에 위치한다.

3. 제2스라빔

각 연방우주 본부에 배정된 일곱 **반사하는 영**이 제2스라빔 무리를 생산한다. 일곱 명으로 집단을 이루는 이 천사의 창조와 관련해서, 분명히 **낙원**에_반응하는 기법이 있다. 일곱 명마다, 항상 한 명의 1차, 세 명의 2차, 그리고 세 명의 3차 제2스라빔이 있으며;그들은 항상 정확한 비율로 인격화한다. 그런 일곱 제2스라빔이 창조될 때, 1차 제2스라빔 한 명이 **태고 항존자**들의 근무에 배속된다. 세 명의 2차 천사는, 연방정부에 있는 **낙원**에서_지원된 세 집단의 행정관, 즉:**신성한 조연자, 지혜 완성자, 및 우주 검열관**들과 연합한다. 세 명의 3차 천사는, 연방우주 통치자들, 즉:**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의 삼자일체된 상승한 동역자들에게 배속된다.

연방우주의 이 제2스라빔은 **반사하는 영**들의 자손이며, 따라서 반사성을 그 본성에 타고난다. 그들은 **제3 근원 및 중심**과 **낙원 창조주 아들**들에서 지원되는 모든 피조물의 각 국면 전체에 반사함으로 반응하지만, 인격적이든지 아니든지, **제1 근원 및 중심**에서만 단독으로 지원되는 존재 및 실체들을 직접 반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우주 정보 회로들이 실체라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아무 증명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제2스라빔의 반사하는 실행은, **공동 행위자**의 무한한 정신이 보편적으로 현존한다는 실체성을 보여주기에 매우 충분할 것이다.

4. 1차 제2스라빔

태고 항존자들에게 배정된 1차 제2스라빔은, 이 삼중 통치자들을 위해 이바지할 때, 살아있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울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수천 또는 수십만 광년{光年} 거리에 있는 다른 존재의 어떤 반응들을 이 거울로 들여다 보고, 이 거울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연방우주 조직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기록은 우주의 운영에 필수이고, 방송은 쓸모 있으며, **단독 사자** 및 기타 사자들의 업무는

interests of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ur colony of omniaphim on Uversa receives instructions from, and makes reports to, only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situated on conjoint executive sphere number seven in the outer ring of Paradise satellites.

3. THE SECONAPHIM

28:3.1 (307.3) The seconaphic hosts are produced by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ssigned to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re is a definite Paradise-responsive technique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these angels in groups of seven. In each seven there are always one primary, three secondary, and three tertiary seconaphim; they always personalize in this exact proportion. When seven such seconaphim are created, one, the primary, becomes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 three secondary angels are associated with three groups of Paradise-origin administrators in the supergovernments: the Divine Counselor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the Universal Censors. The three tertiary angels are attached to the ascendant trinitized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rulers: the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8:3.2 (307.4) These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s are the offspring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refore reflectivity is inherent in their nature. They are reflectively responsive to all of each phase of every creature of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the Paradise Creator Sons, but they are not directly reflective of the beings and entities, personal or otherwise, of sole origin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possess many evidences of the actuality of the universal intelligence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but even if we had no other proof, the reflective performances of the seconaphim would be quit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infinite mind of the Conjoint Actor.

4. THE PRIMARY SECONAPHIM

28:4.1 (307.5) The primary seconaphim, of assignment to the Ancients of Days, are living mirrors in the service of these triune rulers. Think what it means in the economy of a superuniverse to be able to turn, as it were, to a living mirror and therein to see and therewith to hear the certain responses of another being a thousand or a hundred thousand light-years distant and to do all this instantly and unerringly. Records are essential to the conduct of the universes, broadcasts are

매우 유용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은 인간거주 세계와 **낙원** 사이--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기 위치에서 즉시 양쪽을 볼 수 있고, 양쪽을 들을 수 있으며, 양쪽을 알 수 있다.

이들테면 모든 것을 듣고 보는--이 역량은, 오직 **태고 항존자**들이 그들 각자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심지어 거기서도 한계에 부딪치는데, 즉: **우버사**로부터 그런 소통은, **오르본톤**의 세계들 및 우주들로 제한되며, 연방우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동일한 이 반사성 기법은 각 연방우주로 하여금 중앙우주 및 **낙원**과 긴밀하게 접촉하도록 만든다. 일곱 연방정부는, 개별적으로 격리돼 있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를 그렇게 완전하게 반사하고 아래의 결핍에 대해 완전히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호의적이다.

1차 제2스라빔은, 내재적 본성에 따라서 일곱 유형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계층 가운데 첫째 계열이 **영**의 정신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해석하는 선전적 자질을 받아야만 함이 마땅하다:

1. **공동 행위자의 소리**. 각 연방우주마다, 첫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그 계층에서 나중에 창조된 일곱째 제2스라빔마다, **무한한 영**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연방정부에서 **태고 항존자**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해석해주는, 높은 수준의 융통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큰 가치를 갖는데, **신성한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지방 창조계와는 달리, **무한한 영**을 독특하게 인격화한 존재가 연방정부의 보좌(寶座)에 앉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2스라빔 소리들은 그런 본부 구체에 있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개인 대표자인 것이나 거의 다름없다. 정말로, 일곱 **반사하는 영**이 거기에 있지만, 제2스라빔 무리의 이 어머니들은 **일곱 으뜸 영**보다 **공동 행위자**를 덜 충실하게 그리고 덜 자동으로 반사한다.

2. **일곱 으뜸 영의 소리**. 둘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되는 매 일곱째마다, **일곱 으뜸 영**의 집단적 본성과 반응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임무가 배정된 일곱 **반사하는 영**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각 **으뜸 영**을 어떤 연방우주 수도에서 이미 대변하고 있더라도, 그런 대변은 개별적이며, 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볼 때, 그들은 오직 반사함으로 현존할 뿐이며; 따라서 **으뜸 영**들은 매우 개인적인 이 천사들의 봉사를 환영하는데, 이 1차 제2스라빔 가운데 둘째 계열은, **태고 항존자**들 앞에서 **으뜸 영**들을 대변하기에 매우 충분할 만큼 유능하다.

serviceable, the work of the Solitary and other messengers is very helpful, but the Ancients of Days from their position midway between the inhabited worlds and Paradise — between man and God — can instantly look both ways, hear both ways, and know both ways.

28.4.2 (308.1) This ability — to hear and see, as it were, all things — can be perfectly realized in the superuniverses only by the Ancients of Days and only on their respective headquarters worlds. Even there limits are encountered: From Uversa, such communication is limited to the worlds and universes of Orvonton, and while inoperative between the superuniverses, this same reflective technique keeps each one of them in close touch with the central universe and with Paradise. The seven supergovernments, though individually segregated, are thus perfectly reflective of the authority above and are wholly sympathetic, as well as perfectly conversant, with the needs below.

28.4.3 (308.2) The primary seconaphim are found to incline by inherent nature towards seven types of service, and it is befitting that the first serials of this order should be so endowed as inherently to interpret the mind of the Spirit to the Ancients of Days:

28.4.4 (308.3) 1. *The Voice of the Conjoint Actor*. In each superuniverse the first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of that order subsequently created exhibit a high order of adaptability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in the supergovernments. This is of great value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for, unlike the local creations with their Divine Ministers, the seat of a supergovernment does not have a specialized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Hence these seconaphic voice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such a capital sphere. True,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re there, but these mothers of the seconaphic hosts are less truly and automatically reflective of the Conjoint Actor tha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28.4.5 (308.4) 2. *The Voi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second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thereafter created incline towards portraying the collective natures and reac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ough each Master Spirit is already represented on a superuniverse capital by some one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of assignment, such representation is individual, not collective. Collectively, they are only reflectively present; therefore do the Master Spirits welcome the services of these highly personal angels, the second serials of the primary seconaphim, who are so competent to represent them before the

3. **창조주 아들들의 소리**. 무한한 영은 **미가엘** 계층의 **낙원 아들**들을 창조하거나 훈련시키는 데 무슨 관련이 있었음에 틀림없는데, 셋째 1차 제2 스라빔과 그 후에 연속으로 일곱째마다, 이 **창조주 아들**들의 정신을 반사하는 뛰어난 은사{恩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네바돈의 미가엘**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한다면--정말로 알고자 한다면, 공간의 방침에 따라 그를 호출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네바돈 소리들의 우두머리**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요청에 따라서, 기록하는 **미가엘** 제2스라빔을 출석시킬 것이며; 바로 그때 거기서, **태고 항존자들이 네바돈 으뜸 아들**의 소리를 감지할 것이다.

다른 어떤 아들신분 계층도 이렇게 “반사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천사 계층도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바로 **창조주 아들**들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아주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작동함을 확실히 알고, 반드시 만족스럽게 작동함도 아는데, **우버사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제2스라빔 소리들이 한 번도 잘못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기서, 신성이 시간세계의 공간을 둘러싸고 공간에서 시간을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 무언가를 비로소 목격한다. 공간의 어려운 불이익을 정복하는 그들의 과제에서 시간세계의 자녀들을 보좌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영원성 주기의 기법을 너희는 처음으로 얼핏 바라본다. 그리고 이 현상은 **반사하는 영**들의 확립된 우주 기법 이외의 것이다.

외견상 위로는 **으뜸 영**들과 아래로는 **창조주 아들**들이 몸소 현존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태고 항존자**들은 그들의 지휘 하에, 완전하게 반사하고 궁극적으로 정확한 시공우주 장치에 동조된 살아있는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리하여 **태고 항존자**들은, 몸소 현존하지 못하는 고양된 모든 존재의 반사되는 현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수단과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타 수단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방우주 본부에 잠재적으로 현존하신다.

태고 항존자들은, 위로부터는 **영**의 소리_속보{速報},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미가엘**의 소리_속보, 이 둘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뜻을 완전하게 추론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방우주의 경영 직무에 관한 **아버지** 뜻을 추정할 때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들 가운데 두 분의 지식으로부터 다른 한 분의 뜻을 연역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함께 행동해야 하며; 두 명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었더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항상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연방우주를 관장한다.

Ancients of Days.

28.4.6 (308.5) 3. *The Voice of the Creator Sons.* The Infinite Spirit must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creation or training of the Paradise Sons of the order of Michael, for the third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serial thereafter possess the remarkable gift of being reflective of the minds of these Creator Sons. If the Ancients of Days would like to know — really know — the attitude of Michael of Nebadon regarding some matter under consideration, they do not have to call him on the lines of space; they need only call for the Chief of Nebadon Voices, who, upon request, will present the Michael seconaphim of record; and right then and there the Ancients of Days will perceive the voice of the Master Son of Nebadon.

28.4.7 (309.1) No other order of sonship is thus “reflectible,” and no other order of angel can thus function. We do not fully understand just how this is accomplished, and I doubt very much that the Creator Sons themselves fully understand it. But of a certainty we know it works, and that it unfailingly works acceptably we also know, for in all the history of Uversa the seconaphic voices have never erred in their presentations.

28.4.8 (309.2) You are here beginning to see something of the manner in which divinity encompasses the space of time and masters the time of space. You are here obtaining one of your first fleeting glimpses of the technique of the eternity cycle, divergent for the moment to assist the children of time in their tasks of mastering the difficult handicaps of space. And these phenomena are additional to the established universe technique of the Reflective Spirits.

28.4.9 (309.3) Though apparently deprived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s above and of the Creator Sons below, the Ancients of Days have at their command living beings attuned to cosmic mechanisms of reflective perfection and ultimate precision whereby they may enjoy the reflective presence of all those exalted beings whose personal presence is denied them. By and through these means, and others unknown to you, God is potentially present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28.4.10 (309.4) The Ancients of Days perfectly deduce the Father’s will by equating the Spirit voice-flash from above and the Michael voice-flashes from below. Thus may they be unerringly certain in calculating the Father’s will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s. But to deduce the will of one of the Gods from a knowledge of the other two, the three Ancients of Days must act together; two would not be able to achieve the answer. And for this reason, even were there no others, the superuniverses are always presided over by three Ancients of Days,

4. **천사 무리의 소리.** 넷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연속해서 일곱째마다, 위로는 최고스라빔을 비롯해서 아래로는 스라빔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사 계층의 정서에 각별히 반응하는 것이 판명된다. 그래서 **태고 항존자**들의 어떤 협의회에서든지, 명령하거나 감독하는 어떤 천사의 입장이라도 즉시 고려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 있는 스라빔 우두머리가, 반사함으로 전송되는 현상,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버사**로부터 이끌림 받는 현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날이 너희 세계에서 단 하루도 없었지만, **단독 사자**가 미리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우두머리는 무엇이 추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이 영들은, **태고 항존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배려와 조언을 보증하는 끝없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런 종류의 무의식 증언, 따라서, 분명히 편견 없는 증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5. **방송 수신자.** 오직 이 1차 제2스라빔만 수신할 수 있는 특별한 등급의 방송 메시지들이 있다. **우버사**의 정규 방송이 아니지만, 우주 소통의 확립된 회로에 도래하는 어떤 실제 메시지를 **태고 항존자**들의 사려 깊은 통찰력에 동조시킬 목적으로, 그들은 반사하는 소리 천사들과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방송 수신자들은 연속해서 다섯째로 태어나는 자, 즉 다섯째 1차 제2스라빔과 그 후에 일곱째마다 창조되는 자다.

6. **운송 인격체.** 이들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로부터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시간세계의 순례자를 옮기는 제2스라빔이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운송 단체인데, 안쪽으로 **낙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들 각 구역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운행한다. 이 단체는, 여섯째 1차 제2스라빔 및 그 후에 창조된 모든 일곱째 1차 제2스라빔으로 구성된다.

7. **예비 단체.** 매우 큰 집단의 제2스라빔, 1차에서 일곱째마다 태어나는 자는, 그 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임무와 응급 임무배정을 위해 예비군에 편성돼 있다. 고도로 특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동역자의 역할 가운데 어떤 경우든지 제법 잘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런 특화된 임무는 오직 긴급 사태에서만 수행된다. 그들의 평상시 과제는, 특별한 임무가 배정된 천사들 범위에 소속되지 않는, 한 연방우주의 일반화 된 임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5. 2차 제2스라빔

2차 계층의 제2스라빔은 1차 계층의 동료에 못지않게 사려 깊다. 1차, 2차, 및 3차로 분류되는

and not by one or even two.

28:4.11 (309.5)

4. *The Voice of the Angelic Hosts.* The fourth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serial prove to be angels peculiarly responsive to the sentiments of all orders of angels, including the supernaphim above and the seraphim below. Thus the attitude of any commanding or supervising angel is immediately available for consideration at any council of the Ancients of Days. Never a day passes on your world that the chief of seraphim on Urantia is not made conscious of the phenomenon of reflective transference, of being drawn upon from Uversa for some purpose; but unless forewarned by a Solitary Messenger, she remains wholly ignorant of what is sought and of how it is secured. Thes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constantly furnishing this sort of unconscious and certainly, therefore, unprejudiced testimony concerning the endless array of matters engaging the attention and counsel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28:4.12 (309.6)

5. *Broadcast Receivers.* There is a special class of broadcast messages which are received only by these primary seconaphim. While they are not the regular broadcasters of Uversa, they work in liaison with the angels of the reflective voices for the purpose of synchronizing the reflective vision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certain actual messages coming in over the established circuits of universe communication. Broadcast receivers are the fifth serials, the fifth primary seconaphim to be created and every seventh one thereafter.

28:4.13 (310.1)

6. *Transport Personalities.* These are the seconaphim who carry the pilgrims of time from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o the outer circle of Havona. They are the transport corps of the superuniverses, operating inward to Paradise and outward to the worlds of their respective sectors. This corps is composed of the sixth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subsequently created.

28:4.14 (310.2)

7. *The Reserve Corps.* A very large group of seconaphim, the seventh primary serials, are held in reserve for the unclassified duties and the emergency assignments of the realms. Not being highly specialized, they can function fairly well in any of the capacities of their diverse associates, but such specialized work is undertaken only in emergencies. Their usual tasks are the performance of those generalized duties of a superuniverse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angels of specific assignment.

5. THE SECONDARY SECONAPHIM

28:5.1 (310.3)

Seconaphim of the secondary order are no less reflective than their primary fellows.

것은, 제2스라빔의 경우에, 신분 또는 기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과정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들이 활동할 때, 세 집단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반사하는 일곱 유형을 갖는 2차 제2스라빔은, 협조하는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태고 항존자들의 동역자들의 근무에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지혜 완성자들에게 --지혜의 소리, 철학의 혼, 및 혼들의 합동.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조언의 마음, 실존의 기쁨, 및 봉사의 만족.

우주 검열관들에게 --영 분별자.

이 집단은 1차 계층처럼 연속적으로 창조되는데; 즉 첫 태생은 지혜의 소리이고, 그 후 일곱째가 비슷하며, 반사하는 이 천사 가운데 다른 여섯 유형도 그런 식으로 생겼다.

1. **지혜의 소리.** 이 제2스라빔 가운데 더러는,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 즉 1차 최고스라빔에 속하는 지식 관리인들과 영구히 접촉한다. 전문화된 반사하는 봉사에서, 지혜의 소리들은, 온갖 우주에서 조화된 지혜가 응집되고 집중된 자인데, 활기차고 현재적이고 충만하고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 연방우주의 주요 회로들을 도는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해, 훌륭한 이 존재들은 지혜의 진수(眞髓)를 분리시키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선배(先輩)인 지혜 완성자들에게 정신 작용의 이런 보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작용함으로써, 지혜 완성자들은 이 지혜를 실제로 원래 표현한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대변했던 바로 그 존재들을, 높은 데서 기원했든지 낮은 데서 기원했든지, 반사작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기록돼 있다. 우버사에서, 연방우주 정부의 복잡한 직무가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완전한 지혜와 실용적인 지혜 양쪽 다 반드시 필요하게 되면, 지혜 완성자들은 한 무리의 지혜의 소리를 호출하며, 그들 계층의 숙련된 솜씨로 온갖 우주의 정신 속에 들어오고 순환하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이 수신자(受信者)들을 대단히 동조시키고 방향 잡게 하기 때문에, 위로는 우주에서 오는 신성(神性)한 지혜의 흐름과, 아래로는 우주의 고등 정신들에서 오는 실용적인 지혜의 홍수가, 이 제2스라빔 소리들로부터 즉시 쏟아져 나온다.

Being classed a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does not indicate a differential of status or function in the case of seconaphim; it merely denotes orders of procedure. Identical qualities are exhibited by all three groups in their activities.

28:5.2 (310.4) The seven reflective types of secondary seconaphim are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co-ordinate Trinity-origin associates of the Ancients of Days as follows:

28:5.3 (310.5) To the Perfectors of Wisdom — the Voices of Wisdom, the Souls of Philosophy, and the Unions of Souls.

28:5.4 (310.6) To the Divine Counselors — the Hearts of Counsel, the Joys of Existence, and the Satisfactions of Service.

28:5.5 (310.7) To the Universal Censors — the Discerners of Spirits.

28:5.6 (310.8) Like the primary order, this group is created serially; that is, the first-born was a Voice of Wisdom, and the seventh thereafter was similar, and so with the six other types of these reflective angels.

28:5.7 (310.9) 1. *The Voice of Wisdom.* Certain of these seconaphim are in perpetual liaison with the living libraries of Paradis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belonging to the primary supernaphim. In specialized reflective service the Voices of Wisdom are living, current, replete, and thoroughly reliable concentrations and focalizations of the co-ordinated wisdo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the well-nigh infinite volume of information circulating on the master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these superb beings are so reflective and selective, so sensitive, as to be able to segregate and receive the essence of wisdom and unerringly to transmit these jewels of mentation to their superior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they so function that the Perfectors of Wisdom not only hear the actual and original expressions of this wisdom but also reflectively see the very beings, of high or lowly origin, who gave voice to it.

28:5.8 (310.10) It is written, “If any man lack wisdom, let him ask.” On Uversa,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arrive at the decisions of wisdom in the perplexing situations of the complex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when both the wisdom of perfection and of practicability must be forthcoming, then do the Perfectors of Wisdom summon a battery of the Voices of Wisdom and, by the consummate skill of their order, so attune and directionize these living receivers of the enminded and circulating wisdo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at presently, from these seconaphic voices, there ensues a stream of divinity from the universe above and a flood of the wisdom of practicality from the higher minds of the universes below.

이 두 가지 지혜 개정판을 조화시키는 데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상소(上訴)가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올라가는데, 그들은 절차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할 것인지 즉시 판결한다. 만일 반역이 유행하는 영역에서 도래하는 어떤 것의 신빙성에 관해서 어떤 의혹이든지 있을 경우에는, **검열관**들에게 상소가 올라가는데, 그들은 자체의 **영식별자**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이 그 자문가를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즉시 판결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순간의 지능은, **태고 창조자**들의 인정 많은 시선 앞에 열려진 책처럼, 그렇게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연방우주 정부의 운영을 책임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만 어렵듯이 납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처리사항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광범한지, 유한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내가 반복했듯이, 너희가 **우버사**에서 지혜의 성전의 특별한 영접실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주의 행성간 소통이 지극히 복잡하고 확실히 작용하는 것에 감동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놀라운 기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하나님**들의 신성한 지혜와 선하심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설명해 온 바와 똑같이 실제로 일어난다.

2. **철학의 혼**. 이 훌륭한 선생들 역시 **지혜 완성자**들에게 배속돼 있으며, 다르게 방향 잡지 않을 때에는, **낙원**에 있는 철학의 스승들과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를 유지한다. 말하자면, 거대한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너의 유한하고 물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 신성한 지혜와 **낙원**의 철학이 비친 것을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완전한 철학을 “육신화(肉身化)”해서, 비교적 낮은 세상의 저급한 사람들이 그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고 동화하도록 그 철학을 희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살아있는 이 거울들을 아래쪽으로 돌려서 다른 세계 또는 우주의 표준과 필요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지혜 완성자들은 바로 이 기법으로, 고려되는 민족 및 세계들의 실제 필요와 실제 상태에 대한 결정과 권고를 적응시키며, 그들은 항상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이 처리사항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충만한지는 내 납득 역량까지도 넘어선다.

3. **혼들의 합동**. 윤리 관계의 이상(理想)과 상태를 비추는 이 반사자들을 **지혜 완성자**들에게 배속함으로써, 삼중 참모진이 완성된다. 우주에서 체험하고 적응하는 원숙한 지혜의 발휘를 요구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느 것도, 지성적 존재들의

28:5.9 (311.1) If confusion arises regarding the harmonization of these two versions of wisdom, immediate appeal is made to the Divine Counselors, who forthwith rule as to the proper combination of procedures. If there is any doubt as to the authenticity of something coming in from realms where rebellion has been rife, appeal is made to the Censors, who, with their Discerners of Spirits, are able to rule immediately as to “what manner of spirit” actuated the adviser. So are the wisdom of the ages and the intellect of the moment ever present with the Ancients of Days, like an open book before their beneficent gaze.

28:5.10 (311.2) You can just faintly comprehend what all this means to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 immensity an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se transactions are quite beyond finite conception. When you stand, as I repeatedly have, in the special receiving chambers of the temple of wisdom on Uversa and see all this in actual operation, you will be moved to adoration by the perfection of the complexity, and by the surety of the working, of the interplanetary communications of the universes. You will pay homage to the divine wisdom and goodness of the Gods, who plan and execute with such superb technique. And these things actually happen just as I have portrayed them.

28:5.11 (311.3) 2. *The Soul of Philosophy*. These wonderful teachers are also attached to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when not otherwise directionized, remain in focal synchrony with the masters of philosophy on Paradise. Think of stepping up to a huge living mirror, as it were, but instead of beholding the likeness of your finite and material self, of perceiving a reflection of the wisdom of divinity and the philosophy of Paradise. And if it becomes desirable to “incarnate” this philosophy of perfection, so to dilute it as to make it practical of application to, and assimilation by, the lowly peoples of the lower worlds, these living mirrors have only to turn their faces downward to reflect the standards and needs of another world or universe.

28:5.12 (311.4) By these very techniques do the Perfectors of Wisdom adap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real needs and actual status of the peoples and worlds under consideration, and always do they act in concert with the Divine Counselors and the Universal Censors. But the sublime repleteness of these transactions is beyond even my ability to comprehend.

28:5.13 (311.5) 3. *The Union of Souls*. Completing the triune staff of attachment to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these reflectors of the ideals and status of ethical relationships. Of all the problems in the universe requiring an exercise of the

관계와 연합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상업과 무역, 친구관계 및 결혼과 같은 인간적 연합의 경우, 또는 천사 무리와 접촉하는 경우에, 화해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만약에 커지고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주의 순조로운 작용을 망칠 정도로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 작은 마찰, 사소한 오해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 완성자**들은, 자기 계층의 현명한 체험을 전체 연방우주를 위한 “화해의 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모든 업무에서, 반사하는 동역자인 **혼들의 합동**들이 이 연방우주의 현자{賢者}들을 훌륭하게 후원하는데, **혼들의 합동**들은 우주의 상태에 관한 현행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난처한 문제에 대해 최고로 조정된 **낙원** 이상{理想}을 묘사한다. 다른 곳으로 특별히 방향 잡지 않을 때에는, 이 제2스라빔이 **낙원**에 있는 윤리 해석가들과 반사{反射} 작용으로 접촉을 유지한다.

이들은 **오르본톤** 전체의 협동작업을 촉진시키고 증진시키는 천사다. 너희 필사자 생애 동안에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협동작업**이다. 다른 존재들과 일하는 이 기술을 정복해 온 자들이, 완전성에 속하는 구체들에 배치돼 있다. 우주에서 외톨 봉사자가 할 임무는 거의 없다. 너희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 동료들과 갖는 교제가 일시적으로 없게 될 때, 너희는 더욱 고독해질 것이다.

4. **조언의 핵심**. 이들은 **신성한 조언자**들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이 반사하는 귀재{鬼才}들 가운데 첫째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제2스라빔은 공간의 사실을 보존하는데, 시간세계의 회로들에서 그런 자료를 선택한다. 특히 그들은 최고 스랍 첩보 협조자들을 반사하지만, 높은 계층이든지 낮은 계층이든지, 모든 존재의 조언을 선택적으로 반사하기도 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자문 또는 결정을 요청받을 때마다, 그들은 즉시 3인조 **조언의 핵심**을 소집하며, 이윽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연방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정신들의 조정된 지혜와 조언을 실제로 종합한 것이며, 그것은 모두,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 **낙원**에 속한 높은 정신들의 조언에 비춰서 검열되고 교정돼 왔다.

5. **실존의 기쁨**. 이 존재들은 본래, 위로는 최고 스랍 조화 감독관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특정한 스라빔에게 반사함으로 동조돼 있지만, 이 흥미로운 집단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계층의 천사 무리와 의지를 지닌 낮은 피조물 가운데 기쁨의 반응을 증진시키도록 지향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신성한 조언**

consummate wisdom of experience and adaptability, none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arising out of the relationships and associations of intelligent beings. Whether in human associations of commerce and trade, friendship and marriage, or in the liaisons of the angelic hosts, there continue to arise petty frictions, minor misunderstandings too trivial even to engage the attention of conciliators but sufficiently irritating and disturbing to mar the smooth working of the universe if they were allowed to multiply and continue. Therefore do the Perfectors of Wisdom make available the wise experience of their order as the “oil of reconciliation” for an entire superuniverse. In all this work these wise men of the superuniverses are ably seconded by their reflective associates, the Unions of Souls, who make available curr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verse and concurrently portray the Paradise ideal of the best adjustment of these perplexing problems. When not specifically directionized elsewhere, these seconaphim remain in reflective liaison with the interpreters of ethics on Paradise.

28:5.14 (312.1) These are the angels who foster and promote the teamwork of all Orvonton.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to be learned during your mortal career is *teamwork*. The spheres of perfection are manned by those who have mastered this art of working with other beings. Few are the duties in the universe for the lone servant. The higher you ascend, the more lonely you become when temporarily without the association of your fellows.

28:5.15 (312.2) 4. *The Heart of Counsel*. This is the first group of these reflective geniuses to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ivine Counselors. Seconaphim of this type are in possession of the facts of space, being selective for such data in the circuits of time. Especially are they reflective of the superaphic intelligence coordinators, but they are also selectively reflective of the counsel of all beings, whether of high or low estate. Whenever the Divine Counselors are called upon for important advice or decisions, they immediately requisition an ensemble of the Hearts of Counsel, and presently there is handed down a ruling which actually incorporates the co-ordinated wisdom and advice of the most competent minds of the entire superuniverse, all of which has been censored and revised in the light of the counsel of the high minds of Havona and even of Paradise.

28:5.16 (312.3) 5. *The Joy of Existence*. By nature these beings are reflectively attuned to the superaphic harmony supervisors above and to certain of the seraphim below,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just what the members of this interesting group really do. Their principal activities are directed toward promoting reactions of joy among the various orders of the angelic hosts and the

자들이 특별한 기쁨을 습득하려고 그들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비교적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회상 지휘자들과의 협동에서, 기쁨 교환소{交換所}로 작용하는데,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고, 필사자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초월유머를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한편, 그 영역에서 즐거움에 대한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애쓴다. 그들은 모든 외래 영향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지를 갖고 실존함에 내재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며; 그들이 옳지만, 원시적인 사람의 정신 속에 이 진리를 주입시킬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높은 영 인격체 및 천사들일수록 이런 교육적 수고에 더 빨리 반응한다.

6. 봉사의 만족. 이 천사들은 **낙원**에서 운행을 지시하는 자들의 입장을 고도로 반사하며, **실존의 기쁨**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작용하면서, 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에서 유래되는 만족감을 증대시키고자 힘쓴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봉사, 즉 진리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봉사에 내재적인, 앞으로 받을 보상을 조망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이 계층은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배속되며, **신성한 조연자**들은 영적 봉사에서 얻을 은혜를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반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 제2스라빔은, 진부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기에 가장 좋은 자들의 업적을 활용함으로써, 연방우주에서 헌신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막대하게 기여한다. 다른 세계들, 특히 가장 우수한 세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세계에든지 유포시킴으로써, 우호적 경쟁 정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상쾌하고 건전한 경쟁이 스랍 무리 중에서도 권장된다.

7. 영 분별자. 둘째 **하보나** 계도의 조연자 및 자문가들과, 이 반사하는 천사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접촉이 있다. 그들은 **우주 검열관**들에게 배속된 유일한 제2스라빔이지만, 아마 전체 동료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전문화돼 있을 것이다. 정보의 근원 또는 경로와는 상관없이, 손에 권 증거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그들의 반사하는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 분별자들이 참된 동기와 실제 목적 그리고 그것이 기원된 진정한 본질에 관해,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이 천사들의 경이로운 기능발휘에 감탄하는데, 그들은 어떤 개인이 초점에 노출되든지, 그의 실제 도덕적 및 영적 성품을 정확하게 반사한다.

이 반사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직관으로, 본래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그 생각을 인간 정신에게 옮겨주려는 노력으로, 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면, **영 분별자**들은 타고난 “영적 통찰력” 덕분에 이런 복잡한 봉사를 수행한다. **우주 검열관**들이 이 발표문을 볼 때, 그들은 반사된 개인의 적나라한 혼과 대면할 것이며, 바로 이 묘사의 확실성과 완전성이, **검열관**들이 정의로

lower will creatures. The Divine Counselors, to whom they are attached, seldom use them for specific joy finding. In a more general manner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version directors, they function as joy clearinghouses, seeking to upstep the pleasure reactions of the realms while trying to improve the humor taste, to develop a superhumor among mortals and angels. They endeavor to demonstrate that there is inherent joy in freewill existence, independent of all extraneous influences; and they are right, although they meet with great difficulty in inculcating this truth in the minds of primitive men. The higher spirit personalities and the angels are more quickly responsive to these educational efforts.

28:5.17 (312.4) **6. The Satisfaction of Service.** These angels are highly reflective of the attitude of the directors of conduct on Paradise, and functioning much as do the Joys of Existence, they strive to enhance the value of service and to augment the satisfactions to be derived therefrom. They have done much to illuminate the deferred rewards inherent in unselfish service, service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truth.

28:5.18 (312.5) The Divine Counselors, to whom this order is attached, utilize them to reflect from one world to another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spiritual service. And by using the performances of the best to inspire and encourage the mediocre, these seconaphim contribute immensely to the quality of devoted service in the superuniverses. Effective use is made of the fraternal competitive spirit by circulating to any one world information about what the others, particularly the best, are doing. A refreshing and wholesome rivalry is promoted even among the seraphic hosts.

28:5.19 (313.1) **7. The Discerner of Spirits.** A special liaison exists between the counselors and advisers of the second Havona circle and these reflective angels. They are the only seconaphim attached to the Universal Censors but are probably the most uniquely specialized of all their fellows. Regardless of the source or channel of information, no matter how meager the evidence at hand, when it is subjected to their reflective scrutiny, these discerners will forthwith inform us as to the true motive, the actual purpose, and the real nature of its origin. I marvel at the superb functioning of these angels, who so unerringly reflect the actual moral and spiritual character of any individual concerned in a focal exposure.

28:5.20 (313.2) The Discerners of Spirits carry on these intricate services by virtue of inherent “spiritual insight,” if I may use such words in an endeavor to convey to the human mind the thought that these reflective angels thus function intuitively, inherently, and unerringly. When the Universal Censors behold these presentations, they are face to face with the naked soul of the reflected

운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항상 그토록 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분별자들은 **우버사**로부터 떠나서 행하는 어떤 사명이든지 **검열관**들을 항상 따라가며, **우버사** 본부에서 그런 것처럼 우주들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다.

영 세계의 이 모든 진행사항이 실체라는 것, 우주 영토의 불변적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확립된 관례에 따라서 이런 진행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장한다. 새롭게 창조된 모든 계층의 존재는, 생명의 호흡을 받자마자, 즉시 높은 곳에 반사되며; 피조물 본성과 잠재성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묘사가, 연방우주 본부에 섬광처럼 전해진다. 그래서 **검열관**들은, 식별자들을 수단으로 해서, 공간 세계들에서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이” 지금까지 태어났는지 충분히 인식한다.

필사적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너희 세계에서 **거룩한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살빙톤의 어머니 영**이 너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너희에 대한 **영**의 지식에 관해서 제2스랍 분별자들이 **영**과 함께 반사할 때마다, 신성한 **영**이 너희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각 유효하다. 아무튼, **아버지** 단편들의 지식과 계획은 반사될 수 없음이 명시돼야만 할 것이다. 분별자는 **조율사**가 현존함을 반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그리고 **검열관**들은 **조율사**가 신성하다고 선언하지만), **신비 관찰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해독할 수는 없다.

6. 3차 제2스라빔

이 천사들은 동료들과 같은 방법으로, 연속으로 그리고 반사하는 일곱 유형으로 창조되지만, 연방우주 경영자들의 분리된 근무에 이 유형이 개별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들에게 3차 제2스라빔 전체가 집단으로 배정되고, 상승한 이 아들들은 3차 제2스라빔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데; 즉, **강력한 사자**들은 3차 유형 가운데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며, 그들의 협조자인 **권세 높은 이**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도 그렇게 한다. 이 일곱 유형의 3차 제2스라빔은 이렇다:

1. **기원의 중요성.** 연방우주 정부의 상승한 **삼위일체처럼 된 아들**들에게는, 어떤 개인이나 인종 또는 세계가 기원(起源)됨으로 생기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책임이 부과돼 있으며; 기원의 중요성은, 그 영역의 살아있는 피조물을 시공우주에서 진보시키려는 우리의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적용은, 기원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서 생겨난다. 관계에 대해 **하나님**들이 반응하는 기준은 기원이다. **공동 행위자**는 항상 “그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 그것으로 그

individual; and this very certainty and perfection of portraiture in part explains why the Censors can always function so justly as righteous judges. The discerners always accompany the Censors on any mission away from Uversa, and they are just as effective out in the universes as at their Uversa headquarters.

28:5.21 (313.3) I assure you that all these transactions of the spirit world are real, that they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usages and in harmony with the immutable laws of the universal domains. The beings of every newly created order, immediately upon receiving the breath of life, are instantly reflected on high; a living portrayal of the creature nature and potential is flashed to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us, by means of the discerners, are the Censors made fully cognizant of exactly “what manner of spirit” has been born on the worlds of space.

28:5.22 (313.4) So it is with mortal man: The Mother Spirit of Salvington knows you fully, for the Holy Spirit on your world “searches all things,” and whatsoever the divine Spirit knows of you is immediately available whenever the secoraphic discerners reflect with the Spirit concerning the Spirit’s knowledge of you. It should, however, be mentioned that the knowledge and plans of the Father fragments are not reflectible. The discerners can and do reflect the presence of the Adjusters (and the Censors pronounce them divine), but they cannot decipher the content of the mindedness of the Mystery Monitors.

6. THE TERTIARY SECONAPHIM

28:6.1 (313.5) In the same manner as their fellows, these angels are created serially and in seven reflective types, but these types are not assigned individually to the separat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All tertiary seconaphim are collectively assigned to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and these ascendant sons use them interchangeably; that is, the Mighty Messengers can and do utilize any of the tertiary types, and so do their co-ordinate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These seven types of tertiary seconaphim are:

28:6.2 (314.1) 1. *The Significance of Origins.* The ascendant Trinitized Sons of a superuniverse government ar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dealing with all issues growing out of the origin of any individual, race, or world; and the significance of origin is the paramount question in all our plans for the cosmic advancement of the living creatures of the realm. All relationships and the application of ethics grow out of the fundamental facts of origin. Origin is the basis of the relational reaction of the Gods. Always does the Conjoint Actor “take note

사람을 알아차린다.”

하강하는 고등 존재의 경우에, 기원은 단순히 확인돼야 할 어떤 사실에 불과하지만; 천사 가운데 하위 계층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존재의 경우에, 기원의 본질과 환경은 우주 직무가 변화되는 거의 모든 순간마다 똑같이 지극히 중요하지만, 항상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따라서 중앙우주에서 또는 한 연방우주의 전체 영역에 두루, 어떤 존재든지 그 발생에 관해 무엇이 요구되든지 즉시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반사하는 제2스라빔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쓸모 있다.

기원의 중요성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거주하는 방대한 무리의 존재가--곧 사람, 천사, 및 기타 존재들이--즉석에서_참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계보(系譜)다. 그들은 각 연방우주에 속한 어떤 세계든지, 거기 있는 모든 개인의 실제 현재 상태와 조상 요소들에 대한, 최신의, 충분한, 그리고 믿을만한 평가서를 상관에게 제공할 준비가 항상 돼있으며; 보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다.

2. **자비의 기억.** 이들은, **기원의 중요성**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낸 바와 같이, 그 영역의 상태에 정의의 응보를 적용하는 사명을 띤 **무한한 영**의 대행기관들이, 섬세한 보살핌으로 개인과 인종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펼쳤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충분하며 충만한, 살아있는 기록이다. **자비의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립한, 구원(救援)하도록 예비된 자들의 자산에 대조항목으로 적어놓게 될, 자비를 받은 자녀의 도덕적 채무를--곧 그들의 영적 부채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선재(先在)하는 자비를 드러낼 때, 누구나 생존하도록 보장할 만큼 넉넉한 신용한도(信用限度)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기원의 중요성**들의 조사에 따라서, 자비의 신용한도, 즉 신성한 시민권을 정말로 바라는 각각의 혼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비 및 충분한 비율의 신용한도가, 각 이성적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 확립된다.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試算表), 즉 그 영역의 초자연적 무리에 대한 너의 계정의 현재 대차대조표다. 끝나지 않은 생애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가 판결 받게 될 때, 이들은 **우버사**의 법정의 증언으로 발표되는 자비 사역의 살아있는 기록인데, 그때에는 “보좌들이 세워지고 **태고 항존자들**이 권좌에 앉는다. **우버사**의 망송이 그들 앞에서 반포되고 제시되며; 수천 명이 그들에게 수종 들고, 수억 명이 그들 앞에 선다.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런 중대한 행사에서 열려 있는 책들은, 연방우주의 3차 제2스라빔이라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필요하다면, **자비의 기억**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식 기록이 정리 보관돼 있다.

of the man, in what manner he was born.”

28:6.3 (314.2) With the higher descendant beings, origin is simply a fact to be ascertained; but with the ascending beings, including the lower orders of angels,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origin are not always so clear, though of equally vital importance at almost every turn of universe affairs — hence the value of having at our disposal a series of reflective seconaphim who can instantly portray anything required respecting the genesis of any being in either the central universe or throughout the entire realm of a superuniverse.

28:6.4 (314.3) The Significances of Origins are the living ready-reference genealogies of the vast hosts of beings — men, angels, and others — who inhabit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always ready to supply their superiors with an up-to-date, replete, and trustworthy estimate of the ancestral factors and the current actual status of any individual on any world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and their computation of possessed facts is always up to the minute.

28:6.5 (314.4) 2. *The Memory of Mercy.* These are the actual, full and replete, living records of the mercy which has been extended to individuals and races by the tender ministrations of the instrument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mission of adapting the justice of righteousness to the status of the realms, as disclosed by the portrayals of the Significance of Origins. The Memory of Mercy discloses the moral debt of the children of mercy — their spiritual liabilities — to be set down against their assets of the saving provision established by the Sons of God. In revealing the Father's pre-existent mercy, the Sons of God establish the necessary credit to insure the survival of all. And then,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of the Significance of Origins, a mercy credit is established for the survival of each rational creature, a credit of lavish proportions and one of sufficient grace to insure the survival of every soul who really desires divine citizenship.

28:6.6 (314.5) The Memory of Mercy is a living trial balance, a current statement of your account with the supernatural forces of the realms. These are the living records of mercy ministration which are read into the testimony of the courts of Uversa when each individual's right to unending life comes up for adjudication, when “thrones are cast up and the Ancients of Days are seated. The broadcasts of Uversa issue and come forth from before them; thousands upon thousands minister to them, and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stand before them. The judgment is set, and the books are opened.” And the books which are opened on such a momentous occasion are the living records of the tertiary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s. The formal records are on file to corroborate the testimony of the Memories of Mercy if they are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받음으로 확립된 외상대금을, **제3 원원 및 중심**의 끈기 있는 인격체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보살핌으로 완전하고 충실하게 지불했다는 것을, **자비의 기억**이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자비가 다 소모되면, 자비가 고갈됐음을 자비의 “기억”이 입증하면, 응보가 압도하고 정의가 판결한다.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자비는 시간세계에서 끈질기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짓밟혀도 괜찮은 그런 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비가 이렇게 귀중하고 비싸게 증여되지만, 네가 진지한 목적과 정직한 마음만 갖는다면, 너 개인의 인출 신용한도는, 너의 역량이 그 한도를 도저히 초과할 수 없을 만큼 항상 크게 허락돼 있다.

베푼 자비를 반영하는 자들은, 3차 동역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피조물의 훈련을 포함해 수많은 연방우주 사역에 참여한다. 많은 다른 것 가운데, **기원의 중요성**들은 이 상승자들에게 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르치고, 그런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정말로 자비롭게 되는지를, **자비의 기억**들이 그들에게 가르친다. 자비로 보살피는 영 기법이 너희의 개념을 벗어나지만, 성장시키는 특성이 자비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라도 이해해야 한다. 처음에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는 공평하고, 그 위에 인내하고, 그 위에 친절한 데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 위에서 너희가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을 너희 마음 속에 간직한다면, 너희는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정말로 자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자비를 그 자체로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단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참된 자비가 있을 수 없다. 후원이냐 생색(生色) 또는 자선이--심지어 연민의 정도--있을 수 있지만, 자비는 아니다. 집단을 이해함, 서로 존중함, 우애로운 교제, 영적 친교, 및 신성한 조화가 있고 나서, 이에 부속되어, 오직 앞에서 언급한 것들의 뛰어난 절정으로서, 참된 자비가 올 수 있다.

3. 시간의 취지. 시간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의 보편적 기증품이며; 모든 지성 존재에게 위임된 “한 달란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생존을 보증할만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방치됨으로써 시간이 파문될 때에만, 즉 너희 혼의 생존을 보증하도록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에만 치명적으로 낭비된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승하는 여행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지체시킬 뿐이다. 생존이 획득된다면, 다른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임무배정을 받을 때, **시간의 취지** 위원회는 매우 귀중하다. 시간은 **하보나와 낙원**의 이쪽 편에 있는 모든 것에서 치명적인 요소다. **태고 항존자**들 앞에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 시간은 증거물의 한 요소다. **시간의 취지**는, 결정하고 선택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모든 피고인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을 해야 한다.

required.

28:6.7 (314.6) The Memory of Mercy must show that the saving credit established by the Sons of God has been fully and faithfully paid out in the loving ministry of the patient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ut when mercy is exhausted, when the “memory” thereof testifies to its depletion, then does justice prevail and righteousness decree. For mercy is not to be thrust upon those who despise it; mercy is not a gift to be trampled under foot by the persistent rebels of time. Nevertheless, though mercy is thus precious and dearly bestowed, your individual drawing credits are always far in excess of your ability to exhaust the reserve if you are sincere of purpose and honest of heart.

28:6.8 (315.1) The mercy reflectors, with their tertiary associates, engage in numerous superuniverse ministries, including the teaching of the ascending creatures. Among many other things the Significances of Origins teach these ascenders how to apply spirit ethics, and following such training, the Memories of Mercy teach them how to be truly merciful. While the spirit techniques of mercy ministry are beyond your concept, you should even now understand that mercy is a quality of growth. You should realize that there is a great reward of personal satisfaction in being first just, next fair, then patient, then kind. And then, on that foundation, if you choose and have it in your heart, you can take the next step and really show mercy; but you cannot exhibit mercy in and of itself. These steps must be traversed; otherwise there can be no genuine mercy. There may be patronage, condescension, or charity — even pity — but not mercy. True mercy comes only as the beautiful climax to these preceding adjuncts to group understanding, mutual appreciation, fraternal fellowship, spiritual communion, and divine harmony.

28:6.9 (315.2) 3. *The Import of Time.* Time is the one universal endowment of all will creatures; it is the “one talent” intrusted to all intelligent beings. You all have time in which to insure your survival; and time is fatally squandered only when it is buried in neglect, when you fail so to utilize it as to make certain the survival of your soul. Failure to improve one’s tim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does not impose fatal penalties; it merely retards the pilgrim of time in his journey of ascent. If survival is gained, all other losses can be retrieved.

28:6.10 (315.3) In the assignment of trusts the counsel of the Imports of Time is invaluable. Time is a vital factor in everything this side of Havona and Paradise. In the final judgment before the Ancients of Days, time is an element of evidence. The Imports of Time must always afford testimony to show that every defendant has had ample time for making decisions, achieving choice.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기도 하며; 어떤 이행업무든지 그것을 완성하기에 필요할 시간 요소를 묘사하며, 살아있는 다른 계층인 후렌달랭크들 및 크로놀덱들이 그러한 것처럼, 지표(指標)로서 믿을 만하다. **하나님**들은 미리 보고, 따라서 미리 알지만; 시간세계 우주들의 상승 당국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의 취지**와 상의해야 한다.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이 존재들과 처음 만나게 될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그것의 적극적 이용인 업무와, 그것의 소극적 활용인 휴식이라는 양쪽 면에서, 너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유익한 활용에 대해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시간의 양쪽 활용이 다 중요하다.

4. 신용의 엄숙함. 신용은, 의지를 지닌 피조물에 대한 결정적 시험이다. 신뢰도(信賴度)가, 자아극복, 성품에 대한 참된 측정이다. 이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조직체에서 이중 목적을 성취하는데: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신용이 책무이고 신성시되며 엄숙하다는 뜻을 묘사한다. 동시에 그들은, 믿을만하거나 신뢰할만한 어떤 후보자들, 그의 정확한 신뢰도를, 지배하는 권세자들에게 정확하게 반사한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너희는 성품을 파악하고 특유한 재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시도해보지만, **우버사**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완전하게 처리한다. 이 제2스라빔은 정확하게 특성을 평가하는 살아있는 치수로 신뢰도를 재며, 그들이 너를 다 검사한 후에, 책임을 이행하고 신임 받고 사명을 완수할만한 너의 역량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너의 신뢰도라는 자산은, 태만하거나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너의 부채 바로 옆에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 추가된 책임을 너의 성품이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는 속도에 맞춰서, 더 많은 책임을 맡도록 너를 승진시키는 것이 네 상관들의 계획이지만,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은 오직 재난을 초래하고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사람 또는 천사에게 시기상조로 책임을 감당케 하는 실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인의 신용 수용력을 평가할 때 오류가 없는 이 평가자들의 사역을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이 제2스라빔은 **권세 높은 이**들을 항상 대동하며, 이 행정관들은, 후보자가 제2스라빔 저울에 달리고 “모자람이 없다”고 선언될 때까지 임무배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5. 봉사의 고결함. 신뢰할 만하다고 발표되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따라온다. 너 자신의 신뢰도의 부족, 즉 네가 신뢰의 엄숙함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외에는, 네가 더 증진된 봉사를 할 기회를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봉사는--곧 굴종적이 아닌, 의도적인 봉사는--

28:6.11 (315.4) These time evaluators are also the secret of prophecy; they portray the element of time which will be required in the completion of any undertaking, and they are just as dependable as indicators as are the frandalanks and chronoldeks of other living orders. The Gods foresee, hence foreknow; but the ascendant authorities of the universes of time must consult the Imports of Time to be able to forecast events of the future.

28:6.12 (315.5) You will first encounter these beings on the mansion worlds, and they will there instruct you in the advantageous use of that which you call “time,” both in its positive employment, work, and in its negative utilization, rest. Both uses of time are important.

28:6.13 (315.6) **4. The Solemnity of Trust.** Trust is the crucial test of will creatures. Trustworthiness is the true measure of self-mastery, character. These seconaphim accomplish a double purpose in the economy of the superuniverses: They portray to all will creatures the sense of the obligation, sacredness, and solemnity of trust. At the same time they unerringly refl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the exact trustworthiness of any candidate for confidence or trust.

28:6.14 (316.1) On Urantia, you grotesquely essay to read character and to estimate specific abilities, but on Uversa we actually do these things in perfection. These seconaphim weigh trustworthiness in the living scales of unerring character appraisal, and when they have looked at you, we have only to look at them to know the limitations of your ability to discharge responsibility, execute trust, and fulfill missions. Your assets of trustworthiness are clearly set forth alongside your liabilities of possible default or betrayal.

28:6.15 (316.2) It is the plan of your superiors to advance you by augmented trusts just as fast as your character is sufficiently developed to gracefully bear these added responsibilities, but to overload the individual only courts disaster and insures disappointment. And the mistake of placing responsibility prematurely upon either man or angel may be avoided by utilizing the ministry of these infallible estimators of the trust capacity of the individuals of time and space. These seconaphim ever accompany Those High in Authority, and never do these executives make assignments until their candidates have been weighed in the seconaphic balances and pronounced “not wanting.”

28:6.16 (316.3) **5. The Sanctity of Service.** The privilege of service immediately follows the discovery of trustworthiness. Nothing can stand between you and opportunity for increased service except your own untrustworthiness, your lack of capacity for appreciation of the solemnity of trust.

28:6.17 (316.4) Service — purposeful service, not

가장 고상한 만족감이 생기게 하고, 가장 신성한 존엄성을 나타낸다. 봉사는--곧 더 많은 봉사, 증가된 봉사, 어려운 봉사, 모험적인 봉사, 그리고 마침내는 신성하고 완전한 봉사는-- 시간의 목표이자 공간의 목적지다. 그러나 한때의 휴식 주기와 진보하는 봉사 주기가 항상 교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때의 봉사를 한 후에는 영원한 초월 봉사가 따라온다. 너희가 영원한 봉사를 하는 동안 한때의 휴식을 추억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한때의 휴식을 하는 동안 영원한 활동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우주의 조직체는 받아들임과 내보냄에 기초하며; 영원한 생애 내내, 너희는 활동 없는 단조로운 또는 인격이 활기를 잃는 일을 결코 겪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움직임이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발전은 신성한 실행 능력에서 생겨나며, 성취는 상상하는 모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성취 능력에는 윤리를 지키는 책임이 내재하는데, 세계와 우주가 수많은 다른 유형의 존재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는 데 필요하다. *너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장엄한 창조물 전체는, 너희를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우주는 자기중심적인 우주가 아니다. **하나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선언해 오셨고, 너희의 **오빠 아들**은, “너희 가운데 가장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다.

어떤 봉사든지 그 실제 본성은, 천사가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봉사의 척도인 이 제2스라빔, 즉 **봉사의 고결함**을 면전에서 충분히 드러낸다. 진실에 대한, 그리고 숨겨진 동기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 천사들은 정말로 우주에 속한 정신을 읽는 자, 심정을 탐구하는 자, 그리고 혼을 드러내는 자다. 필사자들은 자신의 사고{思考}를 감추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지만, 이 높은 제2스라빔은 인간의 심정 그리고 천사의 정신 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노출시킨다.

6과 7. **위대함의 비결과 선함의 혼**.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시간의 취지를 자각하고 나서, 신의 엄숙함을 깨닫고 봉사의 고결함을 인식하도록 그 길이 준비돼 있다. 이것들이 위대함의 도덕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위대하게 되는 비결도 또한 있다. 위대함을 측정하는 영적 시험이 적용될 때, 도덕적 요소는 무시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이 세상 동료, 특히 빈궁하고 고뇌 속에 있는 귀중한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욕 없이 수고할 때 나타나는 비이기주의 특성, 그것이 행성에서 위대함을 재는 실질적인 척도다. 그리고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는, 자기 통제를 나타내는 것이 곧 위대함의 징후다. 위대한 사람은 “한 도시를 장악하거나” “한 국가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혀를 굴복시키는” 자다.

위대함은 신성{神性}과 비슷한 말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고 선하시다. **위대함과 선함**은

slavery — is productive of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is expressive of the divinest dignity. Service — more service, increased service, difficult service, adventurous service, and at last divine and perfect service — is the goal of time and the destination of space. But ever will the play cycles of time alternate with the service cycles of progress. And after the service of time there follows the superservice of eternity. During the play of time you should envision the work of eternity, even as you will, during the service of eternity, reminisce the play of time.

28:6.18 (316.5) The universal economy is based on intake and output; throughout the eternal career you will never encounter monotony of inaction or stagnation of personality. Progress is made possible by inherent motion, advancement grows out of the divine capacity for action, and achievement is the child of imaginative adventure. But inherent in this capacity for achiev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ethics, the necessity for recognizing that the world and the universe are filled with a multitude of differing types of beings. All of this magnificent creation, *including yourself*, was not made just for you. This is not an egocentric universe. The Gods have decree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nd said your Master Son,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let him be server of all.”

28:6.19 (316.6) The real nature of any service, be it rendered by man or angel, is fully revealed in the faces of these seicographic service indicators, the Sanctities of Service. The full analysis of the true and of the hidden motives is clearly shown. These angels are indeed the mind readers, heart searchers, and soul revealers of the universe. Mortals may employ words to conceal their thoughts, but these high seicnaphim lay bare the deep motives of the human heart and of the angelic mind.

28:6.20 (317.1) 6 and 7. *The Secret of Greatness and the Soul of Goodness*. The ascending pilgrims having awakened to the import of time, the way is prepar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lemnity of trust and for the appreciation of the sanctity of service. While these are the moral elements of greatness, there are also secrets of greatness. When the spiritual tests of greatness are applied, the moral elements are not disregarded, but the quality of unselfishness revealed in disinterested labor for the welfare of one's earthly fellows, particularly worthy beings in need and in distress, that is the real *measure* of planetary greatness. And the *manifestation* of greatness on a world like Urantia is the exhibition of self-control. The great man is not he who “takes a city” or “overthrows a nation,” but rather “he who subdues his own tongue.”

28:6.21 (317.2) Greatness is synonymous with divinity. God is supremely great and good. *Greatness and*

정말로 떼어놓을 수 없다. 위대함과 선함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된다. **위대함의 비결**과 **선함의 혼**이 서로 반사해서 의존하는 것이, 이 진리를 글자 그대로 설명하고 현저하게 설명하는데, 어느 한 편도 다른 편 없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의 다른 특성을 반사할 때, 연방우주 제2스라빔은 홀로 활동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위대함과 선함의 반사 측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어떤 세계에서든지, 어떤 우주에서든지, 위대함에 대한 그리고 선함에 대한 이 반사자들은 함께 일해야만 되는데,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각 존재에 대한 이중적 및 상호 의존적 보고서를 항상 제시한다.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을 모르고는 측정될 수 없는 한편, 본래부터 갖고 있는 신성한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고는 선함의 정도를 묘사할 수 없다.

위대함에 대한 측정은 구체마다 다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함의 질(質)은 전적으로 선함의 내용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너의 현재 인간 정황에서도, 네가 은혜를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면, 너는 그렇게 됨으로써 위대하게 돼가고 있다. 네가 신성한 선함의 개념을 확고하게 더 바라볼수록, 그리고 더 끈질기게 추구할수록, 너는 더욱 확실히 위대해지고, 진정한 생존하는 성품이 참으로 고결해질 것이다.

7. 제2스라빔의 사역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수도에서 기원되고 거기에 본부를 두지만, 연락하는 동료들과 함께 **낙원** 기슭부터 공간 진화 세계들까지 돌아다닌다. 그들은 연방정부 심의회 구성원들에게 귀중한 보좌관으로서 근무하며, **우버사**의 우대 거류민, 즉: 별 연구자, 천 년 마다 다니는 여행자, 천상의 관찰자, 그리고 **하보나**로 운송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기타 존재들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태고 항존자**들은, **우버사** 주변을 도는 490개 연구 세계에 거주하는 상승하는 피조물을 보좌하기 위해, 어떤 1차 제2스라빔을 배정하기를 기뻐하며, 또한 여기서는 2차 및 3차 계층 가운데 다수가 선생으로서 이바지한다. 이 **우버사** 위성들은 시간세계 우주들에서 마무리하는 학교인데, **하보나**의 일곱_회로에 있는 대학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한다.

세 계층의 제2스라빔 가운데, 상승 당국에 배속된 3차 집단은,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을 가장 광범하게 돌본다. 너희가 **오르본톤**의 기다리는 세계들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들의 봉사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유란시아**에서 떠난 직후에 그들을 이따금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우버사** 학교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

goodness simply cannot be divorced. They are forever made one in God. This truth is literally and strikingly illustrated by the reflective interdependence of the Secret of Greatness and the Soul of Goodness, for neither can function without the other. In reflecting other qualities of divinity, the superuniverse seconaphim can and do act alone, but the reflective estimates of greatness and of goodness appear to be inseparable. Hence, on any world, in any universe, must these reflectors of greatness and of goodness work together, always showing a dual and mutually dependent report of every being upon whom they focalize. Greatness cannot be estimated without knowing the content of goodness, while goodness cannot be portrayed without exhibiting its inherent and divine greatness.

28:6.22 (317.3) The estimate of greatness varies from sphere to sphere. To be great is to be Godlike. And since the quality of greatness is wholly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goodness, it follows that, even in your present human estate, if you can through grace become good, you are thereby becoming great. The more steadfastly you behold, and the more persistently you pursue, the concepts of divine goodness, the more certainly will you grow in greatness, in true magnitude of genuine survival character.

7. MINISTRY OF THE SECONAPHIM

28:7.1 (317.4) The seconaphim have their origin and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but with their liaison fellows they range from the shores of Paradise to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y serve as valued assistants to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ve assemblies of the supergovernments and are of great help to the courtesy colonies of Uversa: the star students, millennial tourists, celestial observers, and a host of others, including the ascendant beings in waiting for Havona transport. The Ancients of Days take pleasure in assigning certain of the primary seconaphim to assist the ascending creatures domiciled on the four hundred ninety study worlds surrounding Uversa, and here also do many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orders serve as teachers. These Uversa satellites are the finishing schools of the universes of time, presenting the preparatory course for the seven-circuited university of Havona.

28:7.2 (317.5) Of the three orders of seconaphim, the tertiary group, attached to the ascendant authorities, minister most extensively to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You will on occasion meet them soon after your departure from Urantia, though you will not freely make use of their services until you reach the tarrying worlds of

게 충분히 사귀게 될 때, 그들과 갖는 동무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다.

이 3차 제2스라빔은 시간_절약자, 공간 단축자, 오류 탐지자, 충실한 선생, 그리고 큰 혼란과 영적 불확실성의 순간에 불안에 떠는 순례자들의 발을 거기서 인도하기 위해, 시간의 교차로에 놓인 자비 안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다--곧 신{神}의 보장을 받게 하는 살아있는 길잡이다. 너희는 완전성 입구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신성한 도구에 접근하고, **신격** 기법과 접촉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처음 맨션 세계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너희가 **낙원**으로 운반되도록 **하보나** 수면{睡眠} 예비 상태 속에서 눈을 감게 될 때까지, 너희는 이 놀라운 존재들의 응급 도움을 점점 더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 존재들은 완전성의 문을 향해서 오랫동안 여행하는 도중에 너희를 앞장서 온, 안전하고 의존할만한 순례자들의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지혜에 대하여,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반사하는 자들이다.

유란시아에서 이 반사 계층의 천사들을 활용하는 충분한 특권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 세계를 자주 방문하는데, 배정된 인격체들을 대동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 이 구체는 여전히 부분적인 영적 격리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이바지하는 데 필수적인 회로 가운데 일부는 지금 여기에 없다. 너희 세계가 관련된 반사 회로에 한 번 더 복귀할 때, 행성 간 및 우주 간 소통을 이루는 활동 대부분은 크게 단순화되고 촉진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의 일꾼들은, 반사하는 동역자들의 이 기능적 단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들, 즉 시간세계의 현존 투사자{投射者}와 공간에 있는 살아있는 거울들의 봉사 가운데 다수를 국지적으로 뺏겼음에도, 손에 쥔 방편들을 갖고 우리 직무를 계속 기쁘게 처리한다.

[우버사의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Orvonton. You will enjoy their companionship when you become fully acquainted with them during your sojourn on the Uversa school worlds.

28:7.3 (318.1) These tertiary seconaphim are the timesavers, space abridgers, error detectors, faithful teachers, and everlasting guideposts — living signs of divine surety — in mercy placed at the crossroads of time, there to guide the feet of anxious pilgrims in moments of great perplexity and spiritual uncertainty. Long before attaining the portals of perfection, you will begin to gain access to the tools of divinity and to make contact with the techniques of Deity. Increasingly, from the time you arrive on the initial mansion world until you close your eyes in the Havona sleep preparatory to your Paradise transit, you will avail yourself of the emergency help of these marvelous beings, who are so fully and freely reflective of the sure knowledge and certain wisdom of those safe and dependable pilgrims who have preceded you on the long journey to the portals of perfection.

28:7.4 (318.2) We are denied the full privilege of using these angels of the reflective order on Urantia. They are frequent visitors on your world, accompanying assigned personalities, but here they cannot freely function. This sphere is still under partial spiritual quarantine, and some of the circuits essential to their services are not here at present. When your world is once more restored to the reflective circuits concerned, much of the work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communication will be greatly simplified and expedited. Celestial workers on Urantia encounter many difficulties because of this functional curtailment of their reflective associates. But we go on joyfully conducting our affairs with the instrumentalities at hand, notwithstanding our local deprivation of many of the services of these marvelous beings, the living mirrors of space and the presence projectors of time.

28:7.5 (318.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of Uversa.]

제29편. 우주 동력 지휘자

⇨ 028

유랜시아 책

030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29편
우주 동력 지휘자

섹션

소개

1. 일급 최상급 동력 지휘자
2. 최상급 동력 중심
3. 동력 중심의 영역
4. 총괄 물리 통제관
5. 총괄 힘 조직가

소개

행성 간 문제와 우주 간 직무 규제에 관여하는 모든 우주 인격체 가운데, 동력 지휘자 및 그 동역자들이 **유랜시아**에 가장 적게 알려졌다. 너희 인종들이 천사 및 그와 비슷한 천상의 존재 계층들의 실존을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물리적 범위의 통제관 및 조정자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수 받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도, 총괄우주에서 힘 통제와 에너지 규제에 관여해야만 되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마지막 존재에 대해서만 충분히 밝히도록 내게 허용됐다:

1.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2. **초월적인 부{副} 총괄 힘 조직가.**
3. **우주 동력 지휘자.**

다양한 집단의 우주 동력 지휘자, 중심, 및 통제관들의 개성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활동 범위에 관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기 바란다. 그들은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에 대한 지능적 규제에 관여해야 하는 독특한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다. 그들은 최상급 지휘자들까지 합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부

PAPER 29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 The Supreme Power Centers
3. The Domain of Power Centers
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 The Master Force Organizers

INTRODUCTION

29:0.1 (319.1) OF ALL the universe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regulation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affairs,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have been the least understood on Urantia. While your races have long known of the existence of angels and similar orders of celestial beings, litt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ntrollers and regulators of the physical domain has ever been imparted. Even now I am permitted fully to disclose only the last of the following three groups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force control and energy regulation in the master universe:

29:0.2 (319.2) 1.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29:0.3 (319.3) 2.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29:0.4 (319.4) 3. Universe Power Directors.

29:0.5 (319.5) Though I deem it impossible to portray the individuality of the various groups of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universe power, I hope to be able to explain something about the domain of their activities. They are a unique group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the intelligent regulation of energ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cluding

서를 포함한다:

1.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
2. **최상급 동력 중심.**
3. **총괄 물리 통제관.**
4.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최상급 동력 지휘자 및 **중심**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실존해 왔고, 우리가 아는 한, 이 계층의 존재는 더 이상 창조되지 않았다. **일곱 으뜸 영이 일곱 최상급 지휘자**를 인격화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부모와 공동으로 수고하여 100억 명 넘는 동역자를 생산했다. 동력 지휘자 시대 이전에는, 중앙우주 바깥에 있는 공간 에너지 회로들이 **낙원 으뜸 세력 조직가**들의 지능적 감독 아래 있었다.

물질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 있으므로, 너희는 적어도 영적 존재들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동력 지휘자들을 상상하기는 필사 정신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희는 높은 실존 수준을 향한 상승 진보 기획에서 최상급 지휘자 또는 동력 중심들 중에서 어느 쪽과도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드문 경우에 물리 통제관들과 관계하게 될 것이며, 맨션 세계에 도달할 때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지방 창조계의 모론시아 체제에서만 독자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우주와 관계되는 장{章}에서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1.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는 광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를 조절하는 자다. **일곱 으뜸 영**이 그들을 창조한 것은, 참된 영 조상에서 약간물질 자손이 도출된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경우다. **일곱 으뜸 영**이 개별로 창조할 때, 천사 계층에서 높은 영적 인격체들을 산출하며; 집단으로 창조할 때, 때로 높은 유형의 이 약간물질 존재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유사{類似}_물질 존재조차 **유란시아** 필사자의 짧은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상급 동력 지휘자는 일곱 명이고, 모습과 기능에서 동일하다. 각자 직접 관련된 **으뜸 영**에게 완전히 기능적으로 종속되며, 이 **으뜸 영** 외에는, 아무도 어느 하나와 다른 하나를 구별할 수 없

the supreme directors, they embrace the following major divisions:

29:0.6 (319.6)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9:0.7 (319.7) 2. The Supreme Power Centers.

29:0.8 (319.8) 3.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29:0.9 (319.9) 4.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29:0.10 (319.10)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Centers have existed from the near times of eternity, and as far as we know, no more beings of these orders have been created. The Seven Supreme Directors were personaliz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n they collaborated with their parents in the production of more than ten billion associates. Before the days of the power directors the energy circuits of space outside of the central universe were under the intelligent supervision of the Master Force Organizers of Paradise.

29:0.11 (319.11) Having knowledge about material creatures, you have at least a contrastive conception of spiritual beings;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mortal mind to envisage the power directors. In the scheme of ascendant progression to higher levels of existence you have nothing directly to do with either the supreme directors or the power centers. On certain rare occasions you will have dealings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you will work freely with the supervisors of morontia power upon reaching the mansion worlds. These Morontia Power Supervisors function so exclusively in the morontia regime of the local creations that it is deemed best to narrate their activities in the section dealing with the local universe.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9:1.1 (320.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the physical-energy regul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ir creation by the Seven Master Spirits is the first recorded instance of the derivation of semimaterial progeny from true spirit ancestry.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create individually, they bring forth highly spiritual personalities on the angelic order; when they create collectively, they sometimes produce these high types of semimaterial beings. But even these quasi-physical beings would be invisible to the short-range vision of Urantia mortals.

29:1.2 (320.2)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seven in number, and they are identical in appearance and function. One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another except by that Master

다. **으뜸 영** 각자는 자신의 집단 자손 가운데 하나와 그렇게 영원히 합동해 있다. 같은 지휘자는 같은 **영**과 항상 연합하며, 그들의 일하는 동업관계는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 반{半}물리적 존재와 영 인격체의 독특한 연합이 생기게 한다.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는 **낙원** 주변지역에 주둔하는데, 거기서 서서히 회전하는 그들의 현존이 **으뜸 영**들의 힘_초점{焦點} 본부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동력 지휘자들은 연방우주들의 동력_에너지를 규제할 때에는 단독으로 작용하지만, 중앙 창조물을 경영{經營}할 때에는 집단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낙원**에서 운용되지만, 광우주 전체 부서들에서는 효과적인 동력 중심으로서 자신을 유지한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방대한 무리의 동력 중심, 그리고 이 중심들을 통해서, 일곱 연방우주 영역에 흩어져 있는 물리 통제관들의 물리적 조상이다.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종속된 유기체들은 기본적으로 균일한데, 각 연방우주 단체의 특이한 색조 외에는 똑같다. 연방우주 봉사를 바꾸는 경우에, 그들은 다시 색조를 띄기 위해 **낙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물리적 창조는 경영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Spirit with whom each is in immediate association, and to whom each is in complete functional subservience. Each of the Master Spirits is thus in eternal union with one of their collective offspring. The same director is always in association with the same Spirit, and their working partnership results in a unique association of physical and spiritual energies, of a semiphysical being and a spirit personality.

29:1.3 (320.3)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stationed on peripheral Paradise, where their slowly circulating presences indicate the whereabouts of the force-focal headquarters of the Master Spirits. These power directors function singly in the power-energy regulation of the superuniverses but collectivel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entral creation. They operate from Paradise but maintain themselves as effective power centers in all divisions of the grand universe.

29:1.4 (320.4) These mighty beings are the physical ancestors of the vast host of the power centers and, through them, of the physical controllers scattered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Such subordinate physical-control organisms are basically uniform, identical except for the differential toning of each superuniverse corps. In order to change in superuniverse service, they would merely have to return to Paradise for retoning. The physical creation is fundamentally uniform in administration.

2. 최상급 동력 중심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지만, 집단으로 **일곱 으뜸 영**과 연합해서, 자신을 닮은 다른 존재들을 재생산할 수 있고--즉 창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광우주의 **최상급 동력 중심**들이 그렇게 지원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최상급 중심 감독관.**
2. **하보나 중심.**
3. **연방우주 중심.**
4. **지방우주 중심.**
5. **성좌 중심.**
6. **체계 중심.**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이 동력 중심들은,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과 함께, 높은 의지의 자유를 갖고 실행하는 존재다. 그들은 모두 **제3_근원** 인격을 부여받았고, 높은 계층의 명백한 자발적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우주 동력 체계를 지휘하는 이 중심들은 절묘한

2. THE SUPREME POWER CENTERS

29:2.1 (320.5)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not able, individually, to reproduce themselves, but collectively, and in association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they can and do reproduce — create — other beings like themselves. Such is the origin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grand universe, who function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 29:2.2 (320.6)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 29:2.3 (320.7) 2. Havona Centers.
- 29:2.4 (320.8) 3. Superuniverse Centers.
- 29:2.5 (320.9) 4. Local Universe Centers.
- 29:2.6 (320.10) 5. Constellation Centers.
- 29:2.7 (320.11) 6. System Centers.
- 29:2.8 (320.12) 7. Unclassified Centers.

29:2.9 (321.1) These power centers together with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beings of high will freedom and action. They are all endowed with Third-Source personality and disclose unquestioned volitional capacity of a high order.

지성 재능을 지니며; 광우주 동력 체계를 다루는 지적{知的} 존재이고, **총괄 물리 통제관** 및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광범한 기능의 광대한 연결망 전체를 정신으로 통제하는 기법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다.

1. **최상급중심감독관**.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의 이 일곱 협조자 및 동역자들은 광우주의 주요 에너지 회로들을 규제한다. 각 중심 감독관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특별한 세계 가운데 하나에 본부를 두며, 그들은 광우주 직무를 조정하는 이 존재들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면서 활동한다.

최상급 동력 지휘자와 **최상급 중심 감독관**들은, “인력 에너지” 수준 아래 있는 모든 시공우주 현상에 관하여,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으로 작용한다. 접촉하면서 행동할 때 14명의 이 존재와 우주 동력의 관계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일반 우주 직무의 관계, 그리고 **일곱 으뜸 영**과 시공우주 정신의 관계와 같다.

2. **하보나 중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이 창조되기 전에, 동력 중심들이 **하보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주 먼 이 시간 후로 줄곧, 100만 명이 중앙 창조물에서 작용해 왔는데, 각 중심은 **하보나** 세계 1,000개를 감독한다. 여기 신성한 우주에는, 에너지 통제가 완전한데, 이 상태는 다른 데서 실존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전체 동력 중심들, 그리고 공간에 있는 물리 통제관들의 궁극 목표다.

3. **연방우주 중심**. 일곱 연방우주의 각 수도 구역에서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3차 계층의 1,000개 동력 중심이다. 분리된 10개의 1차 에너지의 세 흐름이 각각 이 동력 중심들로 들어오지만, 불완전하게 통제되더라도 특화되고 잘 방향 잡힌 일곱 동력 회로는, 결합해서 작동하는 자체 위치로부터 나아간다. 이것은 우주 동력의 전자{電子} 조직체다.

모든 에너지는 **낙원** 주기에 따라서 순환되지만,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하부 **낙원** 힘 에너지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의 공간 기능 속에서 변경된 것을 발견하는 대로 이 에너지를 지휘하는데, 유익하고 건설적으로 적용하는 경로로 바꾸고 지휘한다. **하보나** 에너지와 연방우주 에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연방우주의 동력 축적량은 세 국면의 에너지로 구성돼 있고, 각 국면은 10개의 분리 집단으로 이뤄진다. 이 삼중 에너지 전하{電荷}는 광우주 공간에 두루 퍼져 있으며; 그것은 일곱 연방창조물 각각을 모두 빨아들이고 적시는, 움직이는 광대한 에너지 대양{大洋}과 같다.

These directing centers of the universe power system are the possessors of exquisite intelligence endowment; they are the intellect of the power system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 secret of the technique of the mind control of all the vast network of the far-flung func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29:2.10 (321.2)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These seven co-ordinates and associates of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the regulators of the master energy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Each center supervisor is headquartered on one of the special world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work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se co-ordinators of general universe affairs.

29:2.11 (321.3)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Supreme Center Supervisors function both as

individuals and conjointly with regard to all cosmic phenomena below the levels of “gravity energy.” When acting in liaison, these fourteen beings are to universe power what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re to general universe affairs, and what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o the cosmic mind.

29:2.12 (321.4) 2. *Havona Centers.* Befor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power centers were not required in Havona, but ever since these far-distant times, one million have functioned in the central creation, each center having the supervision of a thousand Havona worlds. Here in the divine universe there is perfection of energy control, a condition not existing elsewhere. Perfection of energy regulation is the ultimate goal of all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of space.

29:2.13 (321.5) 3. *Superuniverse Centers.* Occupying

an enormous area on the capital sphere of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one thousand power centers of the third order. Three currents of primary energy of ten segregations each come in to these power centers, but seven specialized and well-directed, though imperfectly controlled, circuits of power go forth from their seat of united action. This is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universe power.

29:2.14 (321.6) All energy is circuited in the Paradise

cycle, but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direct* the force-energies of nether Paradise as they find them modified in the space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converting and directing these energies into channels of useful and constructive applic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Havona energy and the energies of the superuniverses. The power charge of a superuniverse consists of three phases of energy of ten segregations each. This threefold energy charge spreads throughout the space of the grand

우주 동력의 전자{電子} 조직은 일곱 국면으로 작용하며, 국지 인력, 즉 직선 인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 칠중 회로는, 연방우주 동력 중심들로부터 나가서, 각 연방창조물에 널리 퍼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그런 특화된 흐름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작되고 관리되는, 한정적이고 국지화 된 에너지 운동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에 제한된 현상으로서 **멕시코 만류**가 작용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4. 지방우주 중심. 각 지방우주 본부에는, 넷째 계층에 해당하는 100명의 동력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발산하는 일곱 동력 회로를 낮추고 달리 변경시키기 위해 작용하는데, 그리하여 성과와 체계들이 이바지하는데 이 회로들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공간의 국지적 천문 이번은, 이 동력 중심들에게는 일시적 관심거리이며; 그들은 부속된 성과들 및 체계들에게 효과적 에너지를 순서대로 보내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우주를 조직하고 에너지를 동원하는 후기 시대 동안, **창조주 아들**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중심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중요한 지점들 사이에, 행성 간 소통을 위해 유용한 증강된 에너지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에너지 통로 또는 **계통**은, 때로 에너지 경로라고 불리는데, 한 동력 중심에서 다른 동력 중심으로, 또는 한 물리 통제관으로부터 다른 통제관에게로 가는, 직통 에너지 회로다. 이 회로는 개별화된 동력 흐름이며, 분리되지 않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간 운동과 대조된다.

5. 성과 중심. 살아있는 이 동력 중심 열 명이 각 성과에 주둔하는데, 100개의 종속 지역 체계에 에너지를 투사하는 자로서 작용한다. 통신과 운송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물리적 에너지의 특정한 형태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그 피조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동력선{動力線}들이 이 존재들로부터 나간다. 그러나 동력 중심뿐 아니라 종속된 물리 통제관도, 기능적 조직인 생명체에는 달리 관여하지 않는다.

6. 체계 중심. 한 명의 **최상급 동력 중심**이 각 지역 체계에 영구적으로 배정돼 있다. 이 체계 중심들은, 시간과 공간의 인간거주 세계들에 동력 회로를 보낸다. 그들은 종속된 물리 통제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체계에서 동력의 만족스런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작용한다. 행성 간 회로의 중계는, 어떤 물질 에너지를 완전하게 조정하고, 물리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달려있다.

universe; it is like a vast moving ocean of energy which engulfs and bathes the whole of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29:2.15 (321.7)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universe power functions in seven phases and discloses varying respons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is sevenfold circuit proceeds from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and pervades each supercreation. Such specialized currents of time and space are definite and localized energy movements initiated and directed for specific purposes, much as the Gulf Stream functions as a circumscribed phenomenon in the midst of the Atlantic Ocean.

29:2.16 (321.8) **4. Local Universe Center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local universe are stationed one hundred power centers of the fourth order. They function to downstep and otherwise to modify the seven power circuits emanating from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us making them applicable to the services of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 local astronomical catastrophes of space are of passing concern to these power centers; they are engaged in the orderly dispatch of effective energy to the subsidiary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y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Creator Sons during the later times of universe organization and energy mobilization. These centers are able to provide intensified lanes of energy useful for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between important inhabited points. Such a *lane* or *line* of energy, sometimes also called an energy path, is a direct circuit of energy from one power center to another power center or from one physical controller to another controller. It is an individualized stream of power and stands in contrast to the free space movements of undifferentiated energy.

29:2.17 (322.1) **5. Constellation Centers.** Ten of these living power centers are stationed in each constellation, functioning as energy projectors to the one hundred tributary local systems. From these beings there go forth the power lines for communication and transport and for the energizing of those living creatures who are dependent upon certain forms of physical energy for the maintenance of life. But neither the power centers nor th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are otherwise concerned with life as a functional organization.

29:2.18 (322.2) **6. System Centers.** One Supreme Power Center is permanently assigned to each local system. These system centers dispatch the power circuits to the inhabited worlds of time and space. They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and otherwise function to insure the satisfactory distribution of power in the local system. The circuit relay between the planets depends upon the perfect co-ordination of certain material energies and upon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이들은 인간거주 행성이 아니라 특별한 국지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중심이다. 개별 세계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들 체계의 동력 중심이 보낸, 회로화된 동력 계통을 받는다. 가장 색다른 에너지 관계에 속한 구체들만이, 우주 평형 원동력 또는 에너지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일곱째 계층의 동력 중심들을 갖는다. 이 동력 중심들은, 모든 활동 국면마다 높은 통제 단위들에서 작용하는 자들과 완전히 똑같지만, 100만 개 가운데 어느 한 천체도 그런 살아있는 동력 조직을 품고 있지 않다.

3. 동력 중심의 영역

연방우주들 전반에 퍼져 있는 **최상급 동력 중심**의 숫자는, 그 동역자 및 부하들을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다. 그들은 모두, **낙원**에 있는 선조, 즉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과 완전한 동시성 및 완비된 접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광우주의 동력 통제는,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를 창조한 **일곱 으뜸 영**의 보호와 지도에 맡겨져 있다.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 보좌관, 및 부하들은 모두, 언제까지나, 전체 공간의 모든 법정의 체포 또는 간섭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돼 있으며;뿐만 아니라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우주 정부, 또는 **창조주 아들**들의 지방우주 경영에 속한 경영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 이 동력 중심 및 지휘자들을 생기게 한다. 그들은 물리적 우주 조직의 후기 시절 동안 **창조주 아들**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력 중심들은, 어떤 면에서, **지존하신 분**의 시공우주 전면통제와 긴밀하게 연합돼 있다.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은 훈련받지 않으며;그들은 모두 완전하게 창조됐고,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결코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옮기지 않으며;항상 원래 배정된 대로 근무한다. 그들의 직급에는 진화가 없으며, 이것은 두 계층의 일곱 부서 전체에도 해당된다.

기억 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상승한 과거가 없으므로,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은 결코 장난치지 않으며;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완전히 사무적이다. 그들은 항상 근무하며;우주의 책임에는 물리 계통의 에너지 중단에 대비하는 준비가 없으며;이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

the efficient regulation of physical power.

29:2.19 (322.3) 7. *Unclassified Centers.* These are the centers who function in special local situations but not on the inhabited planets. The individual worlds are in the charge of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receive the encircuited lines of power dispatched by the power center of their system. Only those spheres of the most extraordinary energy relationships have power centers of the seventh order acting as universe balance wheels or energy governors. In every phase of activity these power centers are the full equals of those who function on the higher units of control, but not one space body in a million harbors such a living power organization.

3. THE DOMAIN OF POWER CENTERS

29:3.1 (322.4) The Supreme Power Centers distributed throughout the superuniverses number, with their associates and subordinates, upward of ten billion. And they are all in perfect synchrony and complete liaison with their Paradise progenitors,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The power control of the grand universe is thus intrusted to the keeping and direc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creators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9:3.2 (322.5)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all their associates, assistants, and subordinates are forever exempt from apprehension or interference by all the tribunals of all space; neither are they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direction either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the Ancients of Days or of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of the Creator Sons.

29:3.3 (323.1) These power centers and director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not germane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Sons of God, though they affiliate with the Creator Sons during the later epochs of universe material organization. But the power centers are in some way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smic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29:3.4 (323.2)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undergo no training; they are all created in perfection and are inherently perfect in action. Never do they pass from one function to another; always do they serve as originally assigned. There is no evolution in their ranks, and this is true of all seven divisions of both orders.

29:3.5 (323.3) Having no ascendant past to revert to in memory,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never play; they are thoroughly businesslike in all their actions. They are always on dut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universal scheme for the interruption of the physical lines of energy; never for a fraction of a second can these beings

회로들에 대한 자신의 직접 감독을, 1초의 몇 분의 1이라도 중단할 수 없다.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및 동력 통제관들은, 동력, 즉 물질 에너지 또는 반{半}물리적 에너지 이외에, 모든 창조물에 있는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그들은 동력을 기원시키지는 않지만, 동력을 변경시키고 조종하고 방향 잡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 인력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것 외에는, 그 인력과 아무 상관없다. 인력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저항하는 것 밖에 없다.

동력 중심들은, 분리된 다양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살아있는 장치들과 접촉함으로써, 물질 계층의 방대한 장치 및 협조를 활용한다. 각각의 개별 동력 중심은, 정확하게 100만 단위{單位}의 기능 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주요 기관들처럼, 에너지를 변경하는 이 단위들은 고정돼 있지 않으며; 동력을 규제하는, 이 “주요 기관들”은 유동적이고 연합 가능성에서 정말로 변화무쌍하다.

살아있는 이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 에너지의 주요 회로들을 조종하고 규제하는지, 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 거대하고 거의 완전하게 능률적인 동력 중심들의 규모와 역할에 관해서 너희에게 더 알려주려고 시도하면, 오직 너희에게 혼돈을 더해주고 더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시에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너희는 이들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하보나 바깥에서는, **최상급 동력 중심**들이 오직 특별하게 건축된 (건축양식의) 구체 또는 달리 적절하게 건축된 천체에서만 작용한다. 건축양식 세계들은, 공간 에너지가 이 구체들 위에 쏟아 부어지는 동안, 살아있는 동력 중심들이 그 에너지를 방향잡고 변경시키고 집중시키는 선택적 개폐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평범한 항성 또는 행성에서는 그렇게 작용할 수 없다. 어떤 집단들은 특별한 이 본부 세계들을 가열시키는 일과 기타 물질적 필요에도 관여한다. **유란시아**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열을 내지 않고 빛나는 빛을 끌고루 뿌리는 일에, 이 계층의 살아있는 동력 인격체들이 많이 관여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빛의 보급과 방향설정 관여한다.

동력 중심들 및 그 부하 통제관들은, 조직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 전체를 작동하는 데 배정된다. 그들은 각각 열 가지 에너지로 이뤄진, 세 개의 기본 흐름을 갖고 일한다. 그것이 조직된 공간의 에너지 축적량이며; 조직된 공간은 그것들의 세력 범위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현재 경계선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세력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다.

relinquish their direct supervision of the energy circuits of time and space.

29:3.6 (323.4) The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anything in all creation except power, material or semiphysical energy; they do not originate it, but they do modify, manipulate, and directionize it. Neither do they have anything whatever to do with physical gravity except to resist its drawing power. Their relation to gravity is wholly negative.

29:3.7 (323.5) The power centers utilize vast mechanisms and co-ordinations of a material order in liaison with the living mechanisms of the various segregated energy concentrations. Each individual power center is constituted in exactly one million units of functional control, and these energy-modifying units are not stationary as are the vital organs of man's physical body; these “vital organs” of power regulation are mobile and truly kaleidoscopic in associative possibilities.

29:3.8 (323.6) It is utterly beyond my ability to explain the manner in which these living beings encompass the manipulation and regulation of the master circuits of universe energy. To undertake to inform you further concerning the size and function of these gigantic and almost perfectly efficient power centers, would only add to your confusion and consternation. They are both living and “personal,” but they are beyond your comprehension.

29:3.9 (323.7) Outside of Havona the Supreme Power Centers function only on especially constructed (architectural) spheres or on otherwise suitably constituted space bodies. The architectural worlds are so constructed that the living power centers can act as selective switches to directionize, modify, and concentrate the energies of space as they pour over these spheres. They could not so function on an ordinary evolutionary sun or planet. Certain groups are also concerned in the heating and other material necessities of these special headquarters worlds. And though it is beyond the scope of Urantia knowledge, I may state that these orders of living power personalities have much to do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light that shines without heat. They do not produce this phenomenon, but they are concerned with its dissemination and directionization.

29:3.10 (323.8) The power centers and their subordinate controllers are assigned to the working of all of the physical energies of organized space. They work with the three basic currents of ten energies each. That is the energy charge of organized space; and organized space is their domain.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ose tremendous actions of force which are now taking place outside the present boundaries of the seven

동력 중심 및 통제관들은, 각 기본 우주 흐름에 포함된 열 가지 에너지 형태 가운데 오직 일곱 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한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통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제외된 형태는, **무조건 절대자**가 지배하는 에너지 형태화의 예측 불가능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이 **절대자**의 원초적 세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런 기능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물리 통제관들이 **우주 절대자**의 어떤 자극에 대하여 때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견해를 보장할만한 미약한 증거가 약간 있다.

살아있는 이 동력 장치들은, **무조건 절대자**가 총괄우주의 에너지를 전면통제하는 데 의식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체적이고 거의 완전한 동력 지시 기획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이 초월 인력 현존에 중속돼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국지적 에너지 상황에서든지, 그 중심과 통제관들은 지배권을 거의 발휘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절대자**의 초월에너지의 현존과 인식 불가능한 실행을 항상 의식한다.

4. 총괄 물리 통제관

이 존재들은 **최상급 동력 중심**들의 기동력 있는 부하다. 물리 통제관들은, 팔목할만하게 다양한 자동 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의 개체를 변질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단독 사자**의 비행{飛行}에 가까운 속도로 국지적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모든 공간 횡단자와 마찬가지로, 물질 구체에서 떠나갈 때 관성 저항과 인력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들의 도움 및 다른 특정한 존재 유형들의 도움, 양쪽 다 필요로 한다.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광우주에서 두루 근무한다.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가 **낙원**으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직접 통치하며; 여기서부터, **평형 위원회**, 즉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의 요원으로부터 **일곱 으뜸 영**이 파견하는 고위 동력 위원들이 그들을 지휘하고 배분한다. 이 고위{高位} 위원들은 연방우주 전체의 동력의 압력과 에너지 축적량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기계인, 으뜸 후렌달랭크들의 표기{表記}와 등록사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낙원 신격들의 현존이 광우주를 에워싸고 영원성 궤도 사방을 둘러싸지만,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하나의 영향은 단일 연방우주에 제한된

superuniverses.

29:3.11 (324.1) The power centers and controllers exert perfect control over only seven of the ten forms of energy contained in each basic universe current; those forms which are partly or wholly exempt from their control must represent the unpredictable realms of energy manifestation dominated by the Unqualified Absolute. If they exert an influence upon the primordial forces of this Absolute, we are not cognizant of such functions, though there is some slight evidence which would warrant the opinion that certain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sometimes automatically reactive to certain impulses of the Universal Absolute.

29:3.12 (324.2) These living power mechanisms are not consciously related to the master universe energy overcontrol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e surmise that their entire and almost perfect scheme of power direction is in some unknown manner subordinated to this supergravity presence. In any local energy situation the centers and controllers exert near-supremacy, but they are always conscious of the superenergy presence and the unrecognizable performa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29:4.1 (324.3) These beings are the mobile subordinates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endowed with capabilities of individuality metamorphosis of such a nature that they can engage in a remarkable variety of autotransport, being able to traverse local space at velocities approaching the flight of Solitary Messengers. But like all other space traversers they require the assistance of both their fellows and certain other types of beings in overcoming the action of gravity and the resistance of inertia in departing from a material sphere.

29:4.2 (324.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serve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y are directly governed from Paradise by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s far a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from here they are directed and distributed by the Council of Equilibrium, the high commissioners of power dispatch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from the personnel of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These high commissioners are empowered to interpret the readings and registrations of the master frandalanks, those living instruments which indicate the power pressure and the energy charge of an entire superuniverse.

29:4.3 (324.5) While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Deities encircles the grand universe and sweeps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the influence of any

다. 각각의 일곱 연방창조물 사이에는, 뚜렷이 에너지가 격리되고 동력 회로들이 분리되며; 따라서 개별화 된 통제 방법이 지배해야 하고, 지배하고 있다.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최상급 동력 중심**들의 직계 자손이며, 그들의 총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부{副} 동력 지휘자.
2. 기계적 통제관.
3. 에너지 변형가.
4. 에너지 발송자.
5. 1차 연합자.
6. 2차 분리자.
7. 후렌달랭크 및 크로놀덱.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계층들이 모두 인격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특히 마지막 네 존재는, 상관{上官}들의 충동에 대해 반응함에서, 그리고 실존하는 에너지 조건들에 대해 반응함에서 전적으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전적으로 기계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으며; 자동장치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각자 특이한 지능 작용을 나타낸다.

인격이 반드시 정신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하등 동물의 경우처럼, 그리고 특정한 이 하위 물리 통제관의 경우처럼, 모든 선택 능력을 빼앗겼을 때에도 정신은 생각할 수 있다. 더 자동적인 이 물리적 동력 조정자 가운데 다수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인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의지와 독립 결정권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과제를 위한, 기계적으로 완전한 설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 매우 지성적인 존재다.

물리 통제관들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초 에너지를 조정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알려지지 않은 이 에너지들은, 행성 간 운송 체계에, 그리고 특정한 소통 기법에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가 소리에 상당하는 것을 전달하거나 상상력을 확장하는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 계통을 설립할 때, 살아있는 물리 통제관들 및 그 동역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이 에너지 형식을 활용한다. 또한 가끔 중도 피조물이 일상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바로 이 에너지를 활용한다.

1. 부{副} 동력 지휘자. 영역들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 상태의 계속 바뀌는 필요성에 따라서, 모든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을 배정하고 파견하는 일이, 놀라운 정도로 유능한 이 존재들에게 맡겨진다. 물리 통제관의 방대한 예비군이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s limited to a single superuniverse. There is a distinct segregation of energy and a separation of the circuits of power between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hence individualized control methods must and do prevail.

29:4.4 (324.6)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the direct offspring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their numbers include the following:

29:4.5 (324.7) 1. Associate Power Directors.

29:4.6 (324.8) 2. Mechanical Controllers.

29:4.7 (324.9) 3. Energy Transformers.

29:4.8 (325.1) 4. Energy Transmitters.

29:4.9 (325.2) 5. Primary Associators.

29:4.10 (325.3) 6. Secondary Dissociators.

29:4.11 (325.4) 7. The Frandalanks and Chronoldeks.

29:4.12 (325.5) Not all of these orders are persons in the sense of possessing individual powers of choice. Especially do the last four seem to be wholly automatic and mechanical in response to the impulses of their superiors and in reaction to existing energy conditions. But though such response appears wholly mechanistic, it is not; they may seem to be automatons, but all of them disclose the differential function of intelligence.

29:4.13 (325.6) Personality is not necessarily a concomitant of mind. Mind can think even when deprived of all power of choice, as in numerous of the lower types of animals and in certain of thes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Many of these more automatic regulators of physical power are not persons in any sense of the term. They are not endowed with will and independence of decision, being wholly subservient to the mechanical perfection of design for the tasks of their allotment. Nonetheless all of them are highly intelligent beings.

29:4.14 (325.7)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chiefly occupied in the adjustment of basic energies undiscovered on Urantia. These unknown energies are very essential to the interplanetary system of transport and to certain techniques of communication. When we lay lines of energy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sound equivalents or of extending vision, these undiscovered forms of energy are utilized by the living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These same energies are also, on occasion, used by the midway creatures in their routine work.

29:4.15 (325.8) 1. Associate Power Directors. These marvelously efficient beings are intrusted with the assignment and dispatch of all ord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in accordance with the ever-shifting needs of the constantly changing

소구역 본부 세계에 유지되고 있으며, 부{副} 동력 지휘자들이 그들을 이 집결 지점으로부터, 우주, 성좌, 및 체계의 본부로, 그리고 개별 행성으로 주기적으로 파견한다. 그렇게 배정될 때, 물리 통제관들은 조정 위원회의 신성한 집행인(執行人)들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복종하지만, 그 외에는 그들의 부{副} 지휘자들에게만 그리고 **최상급 동력 중심**들에게만 복종한다.

3백만 명의 부{副} 동력 지휘자가 각각의 **오르본톤** 소구역에 배정돼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채다능한 이 존재를 연방우주에 할당받은 숫자는 총 30억에 달한다. 그들 자체의 예비군이 바로 이 여러 소구역 세계에 유지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지성 에너지 통제 및 변형 기법의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존재의 교관으로서 근무하기도 한다.

이 지휘자들은, 소구역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기간과, 공간 영역들을 검사하는 근무 기간을, 똑같은 길이로 번갈아 보낸다. 적어도 한 명의 대리 검사자가 각 지역 체계에 항상 현존하는데, 그 수도 구체에 본부를 둔다. 그들은, 방대한 살아있는 에너지 집합체 전체가 조화로운 동시성을 이루도록 유지시킨다.

2. 기계적 통제관. 이들은 부{副} 동력 지휘자들의 보좌관인데, 대단히 재능이 많고 기동력이 있다. 수 조{兆}에 달하는 그들이 너희 소구역 **엔사**에 임명돼 있다. 이 존재들을 기계적 통제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완전하게 상관의 지배를 받고, 부{副} 동력 지휘자들의 뜻에 그토록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은 매우 지성적이며, 그들의 업무는 기계적이고, 본성적으로 단조로움에도 숨겨 있게 수행된다.

인간거주 세계들에 배정된 전체 **총괄 물리 통제관** 중에서, 기계적 통제관들이 가장 월등하게 능력 있다. 활기찬 반{反}_인력 재능을 다른 모든 존재보다 더 소유하기 때문에, 각 통제관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구체들만이 펼칠 수 있는 인력 저항을 지닌다. 이 통제관 가운데 열 명이 현재 **유란시아**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정 활동 가운데 하나는, 스랍 운반체들이 쉽게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용할 때, 스랍의 출발을 위한 최초 추진력을 1,000명의 에너지 전송자 부대가 제공하는 동안, 열 명의 기계적 통제관 전체가 일치하여 행동한다.

기계적 통제관들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고, 특화된 흐름 또는 회로 안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의 분리와 방향설정 및 강화

energy status of the realms. The vast reserve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maintaine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minor sectors, and from these concentration points they are periodically dispatched by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to the headquarters of the universes, constellations, and systems, and to the individual planets. When thus assigned,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provisionally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vine executioners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but are otherwise solely amenable to their associate directors and to the Supreme Power Centers.

29:4.16 (325.9) Three million associate power directors are assigned to each of the Orvonton minor sectors, making a total of three billion as the superuniverse quota of these amazingly versatile beings. Their own reserves are maintained on these same minor sector worlds, where they also serve as instructors of all who study the sciences of the techniques of intelligent energy control and transmutation.

29:4.17 (325.10) These directors alternate periods of executive service in the minor sectors with equal periods of inspection service to the realms of space. At least one acting inspector is always present in each local system, maintaining headquarters on its capital sphere. They keep the whole vast living energy aggregation in harmonious synchrony.

29:4.18 (325.11) **2. Mechanical Controllers.** These are the exceedingly versatile and mobile assistants of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Trillions upon trillions of them are commissioned in Ensa, your minor sector. These beings are called mechanical controllers because they are so completely dominated by their superiors, so fully subservient to the will of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Nevertheless they are, themselves, very intelligent, and their work, though mechanical and matter-of-fact in nature, is skillfully performed.

29:4.19 (326.1) Of al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ssigned to the inhabited worlds, the mechanical controllers are by far the most powerful. Possessing the living endowment of antigravity in excess of all other beings, each controller has a gravity resistance equaled only by enormous spheres revolving at tremendous velocity. Ten of these controllers are now stationed on Urantia, and one of their most important planetary activities is to facilitate the departure of seraphic transports. In so functioning, all ten of the mechanical controllers act in unison while a battery of one thousand energy transmitters provides the initial momentum for the seraphic departure.

29:4.20 (326.2) The mechanical controllers are competent to directionize the flow of energy and to facilitate its concentration into the specialized currents or circuits. These mighty beings have

{強化}에, 그리고 행성 간 회로들의 압력을 균등화시키는 일에 많이 작용한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동력 축적량을 구성하는, 공간의 30개 물리적 에너지 중에서 21개를 조종하는 데 전문가다. 그들은 또한, 9가지 물리적 에너지의 더욱 미묘한 형태들 중에서 여섯 가지를 훨씬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 통제관들을,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동력 중심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적 관계에 배치함으로써, 부{副} 동력 지휘자들은, 동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통제하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종종, 수백, 수천, 그리고 심지어 수백만에 이르는 부대를 이뤄서 활동하고 자신의 위치와 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개별 수용력뿐 아니라 집단으로도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요구조건이 변할 때, 에너지 양과 운동을 증폭시키고 가속시키거나, 또는 에너지 흐름을 억류하고 응축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 그들은 소위 촉매제가 화학 반응을 증대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에너지와 동력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천적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최상급 동력 중심**들과 협동해서 작용한다.

3. **에너지 변형가.** 연방우주에 있는 이 존재의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타니아**에만도 거의 100만 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할당되는 숫자는 각 인간거주 세계마다 100명이다.

에너지 변형가들은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와 **일곱 중앙 감독관**의 공동 창조물이다. 그들은 더 뚜렷이 인격있는 물리 통제관 체제 가운데 있으며, 부{副} 동력 지휘자가 인간거주 세계에 현존할 때 외에는 변형가들이 지휘한다. 그들은 떠나가는 스랍 운송체들 전체에 대한 행성 검열관이다. 모든 계층의 천상{天上} 생명체는 부{副} 지휘자 및 에너지 변형가들 중에서 더 뚜렷이 인격있는 계층과 접촉함으로써만, 물리 통제관들의 비교적 덜 인격있는 계층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변형가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살아있는 개폐기{開閉器}인데, 주어진 동력 배치나 방향설정을 따르도록, 또는 저항하도록 자신을 배분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행성 및 별들의 이웃 사이를 지나가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에 대해 행성을 절연시키려고 애쓰는 데 숙달돼 있다. 그들의 에너지_변화 속성이 우주의 에너지 균형 또는 동력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에서 그들을 가장 쓸모 있게 만든다. 한때는 그들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축적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다른 때에는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변형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에너지와 죽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기” 잠재력을 증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물

much to do with the segregation, directioniz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physical energies and with the equalization of the pressures of the interplanetary circuits. They are expert in the manipulation of twenty-one of the thirty physical energies of space, constituting the power charge of a superuniverse. They are also able to accomplish much towards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six of the nine more subtle forms of physical energy. By placing these controllers in proper technic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and to certain of the power centers,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are enabled to effect unbelievable changes in power adjustment and energy control.

29:4.21 (326.3)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ften function in batteries of hundreds, thousands, and even millions and by varying their positions and formations are able to effect energy control in a collective as well as an individual capacity. As requirements vary, they can upstep and accelerate the energy volume and movement or detain, condense, and retard the energy currents. They influence energy and power transformations somewhat as so-called catalytic agents augment chemical reactions. They function by inherent ability and in co-operation with the Supreme Power Centers.

29:4.22 (326.4) 3. *Energy Transformers.* The number of these beings in a superuniverse is unbelievable. There are almost one million in Satania alone, and the usual quota is one hundred for each inhabited world.

29:4.23 (326.5) The energy transformers are the conjoint creation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Seven Center Supervisors. They are among the more personal orders of physical controllers, and except when an associate power director is present on an inhabited world, the transformers are in command. They are the planetary inspectors of all departing seraphic transports. All classes of celestial life can utilize the less personal order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only by liaison with the more personal orders of the associate directors and the energy transformers.

29:4.24 (326.6) These transformers are powerful and effective living switches, being able to dispose themselves for or against a given power disposition or directionization. They are also skillful in their efforts to insulate the planets against the powerful energy streams passing between gigantic planetary and starry neighbors. Their energy-transmutive attributes render them most serviceable in the important task of maintaining universal energy balance, or power equilibrium. At one time they seem to consume or store energy; at other times they appear to exude or liberate energy. The transformers are able to increase or to diminish the “storage-battery” potential of the

리적 및 약간물질적 에너지와 관계하는데, 생명의 범위에서는 직접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태를 바꾸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약간물질 피조물 중에서, 에너지 변형가들이 가장 괄목할만하고 신비로운 존재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물질 분화를 이루고, 자신의 접촉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연합된 현존을 통과해 지나가는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영역의 상태는, 그들의 노련한 조종으로 변형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공간 에너지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그들은 동료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방우주 동력 축적량의 30개 물리적 에너지 가운데 27개의 형태 및 잠재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이 이 에너지 중에서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 절대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머지 네 집단의 총괄 물리 통제관은, 그 단어의 어떤 용납할만한 정의(定義)로도 도저히 인격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송신자, 연합자, 분리자, 및 후련달랭크들은, 반응할 때 전적으로 자동적이며;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지성적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실재들에 대한 우리 지식에서 크게 제한돼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듯하지만, 반응할 능력은 전혀 없다.

4. 에너지 발송자. 이 존재들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행성 간 수용력 내에서 작용한다. 그들은, 에너지가 개별 세계에 나타나다시피, 놀라운 에너지 발송자다.

에너지가 새로운 회로로 전환될 때, 발송자들은 바람직한 에너지 경로를 따라서 한 줄로 자신을 배치하며, 에너지_흡인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속성 덕분에, 원하는 방향에서 증가된 에너지 흐름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 흐름에 대해 어떤 금속 회로들이 방향 잡는 것과 아주 똑같이 그렇게 하며;30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리적 에너지 형태에 대해 활기찬 초전도체(超傳導體)다.

발송자들은, 행성에서 행성으로, 그리고 어떤 개별 행성에서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특화된 에너지의 약해지는 흐름을 복구시키기에 효과적인, 노련한 접촉을 형성한다. 그들은 너무 약해서 다른 유형의 살아있는 존재가 인식할 수 없는 흐름도 감지할 수 있으며, 이 에너지를 증대시켜서, 담겨있는 메시지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의 봉사는 방송 수신자들에게 해야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living and dead energies of their respective realms. But they deal only with physical and semimaterial energies, they do not directly function in the domain of life, neither do they change the forms of living beings.

29:4.25 (327.1) In some respects the energy transformers are the most remarkable and mysterious of all semimaterial living creatures. They are in some unknown manner physically differentiated, and by varying their liaison relationships, they are able to exert a profound influence upon the energy which passes through their associated presences. The status of the physical realms seems to undergo a transformation under their skillful manipulation. They can and do change the physical form of the energies of space. With the aid of their fellow controllers they are actually able to change the form and potential of twenty-seven of the thirty physical energies of the superuniverse power charge. That three of these energies are beyond their control proves that they are not instrumentaliti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29:4.26 (327.2) The remaining four group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hardly persons within any acceptable definition of that word. These transmitters, associators, dissociators, and frandalanks are wholly automatic in their reactions; nevertheless they are in every sense intelligent. We are greatly limited in our knowledge of these wonderful entities because we cannot communicate with them. They appear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realm, but they cannot communicate with us. They seem fully able to receive our communications but quite powerless to make response.

29:4.27 (327.3) **4. Energy Transmitters.** These beings function chiefly, but not wholly, in an intraplanetary capacity. They are marvelous dispatchers of energy as it is manifested on the individual worlds.

29:4.28 (327.4) When energy is to be diverted to a new circuit, the transmitters deploy themselves in a line along the desired energy path, and by virtue of their unique attributes of energy-attraction, they can actually induce an increased energy flow in the desired direction. This they do just as literally as certain metallic circuits directionize the flow of certain forms of electric energy; and they are living superconductors for more than half of the thirty forms of physical energy.

29:4.29 (327.5) Transmitters form skillful liaisons which are effective in rehabilitating the weakening currents of specialized energy passing from planet to planet and from station to station on an individual planet. They can detect currents which are much too feeble to be recognized by any other type of living being, and they can so augment these energies that the accompanying message becomes perfectly intelligible. Their services are

에너지 발송자들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각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멀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지역 체계에, 그리고 개별 행성에 응급 통신선을 제공한다. 정식으로 설립된 회로들의 바깥쪽과 소통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이용해야 한다.

이 존재들은, 에너지 변환자들과 함께, 희박한 대기{大氣}를 가진 세계들에서 필사자의 실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며, 숨을 쉬지 않는 행성 생명 기법에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5. 1차 연합자.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이 실체들은 훌륭한 에너지 보존자 및 관리자다. 행성이 항성의 빛을 저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들은 양극{陽極}을 나타내는 시기 동안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일하는데, 공간 에너지를,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들은 또한 물질 실존의 원시 단위 가운데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 변형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참여함으로써 작용한다. 그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이 기능으로 고갈되거나 비워지지 않으며; 살아있는 촉매처럼 작용한다.

음극{陰極}을 나타내는 시기 동안, 그들은 축적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너희의 지식은, 그들의 업무의 이 측면에 해당하는 기법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보돼 있지 않다. 그들은 항상 우주 법칙에 순응해서 일하는데, 동일한 알파벳 글자로 방대하게 다른 이야기를 엮도록 만들기 위해 너희가 조절할 수 있는 활자를 처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원자, 전자, 및 궁극체를 다루고 조종한다.

연합자들은, 조직화하는 물리적 구체에 처음 나타나는 생명 집단이며,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혀 실존할 수 없다고 간주할만한 물리적 온도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 범위를 초월하는 생명체 계층을 대표한다. 그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분리자들과 함께, 그들은 모든 지성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창성이 없다.

6. 2차 분리자. 1차 연합자와 비교하면, 거대한 반인력{反引力} 재능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역전시키는 일꾼이다. 지역 세계 또는 지역 체계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특별하거나 변경된 형태들이 다 소모될 어떤 위험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이 조직들이 끝없는 에너지 공급을 이끌어내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 에너지 형

invaluable to the broadcast receivers.

29:4.30 (327.6) Energy transmitters can function with regard to all forms of communicable perception; they can render a distant scene “visible” as well as a distant sound “audible.” They provide the emergency lines of communication in the local systems and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se services must be used by practically all creatures for purposes of communication outside of the regularly established circuits.

29:4.31 (327.7) These beings, together with the energy transformers, are indispensable to the maintenance of mortal existence on those worlds having an impoverished atmosphere, and the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technique of life on the nonbreathing planets.

29:4.32 (328.1) **5. Primary Associators.** These interesting and invaluable entities are masterly energy conservators and custodians. Somewhat as a plant stores solar light, so do these living organisms store energy during times of plus manifestations. They work on a gigantic scale, converting the energies of space into a physical state not known on Urantia. They are also able to carry forward these transformations to the point of producing some of the primitive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se beings simply act by their presence. They are in no way exhausted or depleted by this function; they act like living catalytic agents.

29:4.33 (328.2) During seasons of minus manifestations they are empowered to release these accumulated energies. But your knowledge of energy and matter is not sufficiently advanced to make it possible to explain the technique of this phase of their work. They always labor in compliance with universal law, handling and manipulating atoms, electrons, and ultimatons much as you maneuver adjustable type to make the same alphabetical symbols tell vastly different stories.

29:4.34 (328.3) The associators are the first group of life to appear on an organizing material sphere, and they can function at physical temperatures which you would regard as utterly incompatible with the existence of living beings. They represent an order of life which is simply beyond the range of human imagination. Together with their co-workers, the dissociators, they are the most slavish of all intelligent creatures.

29:4.35 (328.4) **6. Secondary Dissociators.** Compared with the primary associators, these beings of enormous antigravity endowment are the reverse workers. There is never any danger that the special or modified forms of physical energy on the local worlds or in the local systems will be exhausted, for these living organizations are endowed with the unique power of evolving

태를, 그보다 덜 인식된 물질 형태로부터 이끌어 내는 일에 주로 관여한다. 그들은 정말로 공간의 연금술사이며, 시간세계의 경이로운 일꾼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적(異蹟)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시공우주 지존**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7. 후렌달랭크 이 존재들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세 계층의 존재, 즉: 1차 및 2차 힘 조직가와 동력 지휘자들 전체의 공동 창조물이다. 후렌달랭크들은 전체 **총괄 물리 통제관**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으며; **사타니아**에서 활동하는 숫자만 해도 너희의 숫자 개념을 벗어난다. 그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에 머물며, 물리 통제관 중에서 높은 계층에 항상 배속돼 있다. 그들은 중앙 및 연방 우주에서, 그리고 외부 공간 영토들에서 서로 교환하여 작용할 수 있다.

후렌달랭크들은 기초 우주 세력의 각 형태마다 하나씩 30개 부서로 창조되며, 살아있고 자동적인 현존, 압력, 그리고 속도 계량기로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살아있는 이 척도(尺度)는, 모든 형태의 힘-에너지 상태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에만 관여한다. 그들과 물리적 우주의 관계는, 방대한 반사성 장치와 생각있는 우주의 관계와 같다. 양적 및 질적 에너지 현존을 등록하고 그 위에 시간도 등록한 후렌달랭크를 **크로놀렉**이라고 부른다.

나는 후렌달랭크들이 지성적임을 인식하지만, 그들을 살아있는 기계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 기계장치들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지성체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이 만든 기계 장치에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존재들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확성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갖고, 오히려 극도의 정밀성을 갖고,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더 까다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지성적이고 살아있는 기계장치들(곧 실체들)을 우리가 실제로 광우주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너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

5. 총괄 힘 조직가

힘 조직가들은 **낙원**에 거주하지만, 총괄우주 전역에서 작용하는데, 더 특별하게는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 영역들에서 작용한다. 이 비범한 존재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며, 두 가지 주요 봉사 부서를 포함한다:

1.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limitless supplies of energy. They are chiefly concerned with the evolution of a form of energy which is hardly known on Urantia from a form of matter which is recognized still less. They are truly the alchemists of space and the wonder-workers of time. But in all the wonders they work, they never transgress the mandates of Cosmic Supremacy.

29:4.36 (328.5) 7. *The Frandalanks*. These beings are the joint creation of all three orders of energy-control beings: the primary and secondary force organizers and the power directors. Frandalanks are the most numerous of al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number functioning in Satania alone is beyond your numerical concept. They are stationed on all inhabited worlds and are always attached to the higher orders of physical controllers. They function interchangeably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d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29:4.37 (328.6) The frandalanks are created in thirty divisions, one for each form of basic universe force, and they function exclusively as living and automatic presence, pressure, and velocity gauges. These living barometers are solely concerned with the automatic and unerring registration of the status of all forms of force-energy. They are to the physical universe what the vast reflectivity mechanism is to the minded universe. The frandalanks that register time in addition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ergy presence are called *chronoldeks*.

29:4.38 (328.7) I recognize that the frandalanks are intelligent, but I cannot classify them as other than living machines. About the only way I can help you to understand these living mechanisms is to compare them to your own mechanical contrivances which perform with almost intelligentlike precision and accuracy. Then if you would conceive of these beings, draw upon your imagination to the extent of recognizing that in the grand universe we actually have intelligent and *living* mechanisms (entities) that can perform more intricate tasks involving more stupendous computations with even greater delicacy of accuracy, even with ultimacy of precision.

5. THE MASTER FORCE ORGANIZERS

29:5.1 (329.1) The force organizers are resident on Paradise, but they function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more particularly in the domains of unorganized space. These extraordinary beings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and they comprise two grand divisions of service:

29:5.2 (329.2) 1.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2.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

원시 세력을 조종하는 강력한 이 두 계층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감독 아래서 독자적으로 일하며, 현재 광우주 경계선 안에서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은, **무조건 절대자**의 원시 공간 세력, 즉 기본 공간 세력을 조종하는 자이며; 성운 창조자다. 그들은 공간 에너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선동가이며, 이 거대한 형태화를 초기에 조직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자다. 이 힘 조직가들은 원시 세력을(곧 **낙원**의 직접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미완{未完}_에너지를) 1차 에너지 곧 **유력 에너지**로 변질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이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자**의 독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낙원 섬**의 인력에 지배되도록 변질된다. 그 결과로 부 힘 조직가들이 그들을 대신하는데, 이 조직가들은 1차 단계로부터 2차 곧 **인력 에너지**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 변질 과정을 계속한다.

지방우주 창조를 위한 계획이 완성되면, **부 총괄 힘 조직가**들은, **창조주 아들**이 도착함에 따라 신호를 받고, 천문 사법권을 갖는 연방우주에서 활동하는 동력 지휘자들 계층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도 그들이 외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부{副} 힘 조직가들이 이 물리 창조계를 무기한 책임진다.

총괄 힘 조직가들은, **오르본톤**의 다재다능한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도 참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아래서, 온도를 견디며 작용한다. 외부 공간의 이런 영역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계시된 존재는, **단독 사자** 및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다.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권세로 활동하는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29:5.3 (329.3) 2.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29:5.4 (329.4) These two mighty orders of primordial-force manipulators work exclusive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at the present time they do not function extensively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grand universe.

29:5.5 (329.5)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are the manipulators of the primordial or basic space-forc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y are nebulae creators. They are the living instigators of the energy cyclones of space and the early organizers and directionizers of these gigantic manifestations. These force organizers transmute *primordial force* (pre-energy not responsive to direct Paradise gravity) into primary or *puissant energy*, energy transmuting from the exclusiv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o the gravity grasp of the Isle of Paradise. They are thereupon succeeded by the associate force organizers, who continue the process of energy transmutation from the primary through the secondary or *gravity-energy* stage.

29:5.6 (329.6) Upon the completion of the plans for the creation of a local universe, signaled by the arrival of a Creator Son,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give way to the orders of power directors acting in the superuniverse of astronomic jurisdiction. But in the absence of such plans the associate force organizers continue on indefinitely in charge of these material creations, even as they now operate in outer space.

29:5.7 (329.7) The Master Force Organizers withstand temperatures and function under physical conditions which would be intolerable even to the versatil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Orvonton. The only other types of revealed beings capable of functioning in these realms of outer space are the Solitary Messengers and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29:5.8 (329.8)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30편. 광우주의 인격체

⇨ 029

유랜시아 책

031 ⇨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30편
광우주의 인격체

섹션

소개

1.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낙원 분류
2. 우버사 인격체 등록부
3. 우대 거류민
4. 상승하는 필사자

소개

낙원에서, 그리고 광우주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인격체 및 인격적이지 않은 실체는, 거의 무한한 숫자의 살아있는 존재를 구성한다. 무수한 하위유형 및 변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계층 및 유형의 숫자만으로도, 인간이 상상하기에 현기증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튼, 두 가지 기본 등급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을--곧 **낙원** 분류에 대한 암시와 **우버사 인격체 등록부**의 개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적으로 일관된 분류표를 작성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집단들이 모두 계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집단을 조직적으로 분류하기에 요구되는 더 많은 계시를 다루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추가 문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개념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계시된 이 개념들이 주는 자극, 창조적 추측을 일으키는 자극을, 다음 1,000년 동안, 사려 깊은 필사자들로부터 뺏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도한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상상력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PAPER 30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2.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 The Courtesy Colonies
4. The Ascending Mortals

INTRODUCTION

30:0.1 (330.1) THE personalities and other-than-personal entities now functioning on Paradise and in the grand universe constitute a well-nigh limitless number of living beings. Even the number of major orders and types would stagger the human imagination, let alone the countless subtypes and variations. It is, however, desirable to present something of two basic classifications of living beings — a suggestion of the Paradise classification and an abbreviation of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0:0.2 (330.2) It is not possible to formulate comprehensive and entirely consistent classification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because *all* of the groups are not revealed. It would require numerous additional papers to cover the further revelation required to systematically classify all groups. Such conceptual expansion would hardly be desirable as it would deprive the thinking mortals of the next thousand years of that stimulus to creative speculation which these partially revealed concepts supply. It is best that man not have an overrevelation; it stifles imagination.

1.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낙원 분류

낙원에서는, 낙원 신격들에 대한 선천적 관계 및 달성된 관계에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분류된다.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의 고위급 회합이 있는 동안에 출석한 자들은 종종, 기원에 따라서: 즉 삼중 기원에 속하거나 **삼위일체** 달성에 속한 자; 이중 기원에 속한 자; 그리고 단일 기원에 속한 자로 분류된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낙원** 분류를 필사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허락 받았다:

하나{}. **삼중_기원 존재**. 낙원 신격 세 분 모두가, 세 분으로서든지 또는 **삼위일체**로서든지 창조한 존재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삼위일체처럼 된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은, 그 명칭이 계시됐는지 계시되지 않았든지, 삼자일체된 모든 집단의 존재를 가리킨다.

A. **최상급 영.**

1. 일곱 으뜸 영.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3. 일곱 계층의 반사하는 영.

B. **삼위일체 상비 아들.**

1. 삼위일체처럼 된 지존성 비밀.
2. 영원 향존자.
3. 태고 향존자.
4. 완성 향존자.
5. 최근 향존자.
6. 합동 향존자.
7. 충실 향존자.
8. 지혜 완성자.
9. 신성한 조연자.
10. 우주 검열관.

C.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와 삼위일체처럼 된 존재.**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2. 영감된 삼위일체 영.
3. 하보나 원주민.
4. 낙원 시민.
5.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
6. 신격의_삼위일체처럼 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

1.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30:1.1 (330.3) Living beings are classified on Paradise in accordance with inherent and attained relationship to the Paradise Deities. During the grand gathering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those present are often grouped in accordance with origin: those of triune origin, or of Trinity attainment; those of dual origin; and those of single origin.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to the mortal mind, but we are authorized to present the following:

30:1.2 (330.4) I. TRIUNE-ORIGIN BEINGS. Beings created by all three Paradise Deities, either as such or as the Trinity, together with the Trinitized Corps, which designation refers to all groups of trinitized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30:1.3 (330.5) A. The Supreme Spirits.

30:1.4 (330.6) 1. The Seven Master Spirits.

30:1.5 (330.7)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30:1.6 (330.8) 3. The Seven Orders of Reflective Spirits.

30:1.7 (330.9) B.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30:1.8 (330.10)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30:1.9 (330.11) 2. Eternals of Days.

30:1.10 (330.12) 3. Ancients of Days.

30:1.11 (330.13) 4. Perfections of Days.

30:1.12 (331.1) 5. Recents of Days.

30:1.13 (331.2) 6. Unions of Days.

30:1.14 (331.3) 7. Faithfuls of Days.

30:1.15 (331.4) 8. Perfectioners of Wisdom.

30:1.16 (331.5) 9. Divine Counselors.

30:1.17 (331.6) 10. Universal Censors.

30:1.18 (331.7) C. Trinity-origin and Trinitized Beings.

30:1.19 (331.8) 1. Trinity Teacher Sons.

30:1.20 (331.9) 2. Inspired Trinity Spirits.

30:1.21 (331.10) 3. Havona Natives.

30:1.22 (331.11) 4. Paradise Citizens.

30:1.23 (331.12) 5. Unrevealed Trinity-origin Beings.

30:1.24 (331.13) 6. Unrevealed Deity-trinitized Beings.

재.

7.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30:1.25 (331.14) 7.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8.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

30:1.26 (331.15) 8.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9.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

30:1.27 (331.16) 9.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10. 피조물에서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30:1.28 (331.17) 10. Creature-trinitized Sons.

둘{II}. **이중_기원 존재**.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두 분으로부터 기원되거나, 그밖에 낙원 신격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손 중에서 어느 두 존재가 창조한 존재들.

30:1.29 (331.18) II. **DUAL-ORIGIN BEINGS**. Those of origin in any two of the Paradise Deities or otherwise created by any two beings of direct or indirect descent from the Paradise Deities.

A. **하강하는 계층**.

30:1.30 (331.19) A. *The Descending Orders*.

1. 창조주 아들.

30:1.31 (331.20) 1. Creator Sons.

2. 집정관 아들.

30:1.32 (331.21) 2. Magisterial Sons.

3. 빛나는 새벽별.

30:1.33 (331.22) 3. Bright and Morning Stars.

4. 아버지 멜기세덱.

30:1.34 (331.23) 4. Father Melchizedeks.

5. 멜기세덱.

30:1.35 (331.24) 5. The Melchizedeks.

6. 보론다덱.

30:1.36 (331.25) 6. The Vorondadeks.

7. 라노난덱.

30:1.37 (331.26) 7. The Lanonandeks.

8. 찬란한 저녁별.

30:1.38 (331.27) 8. Brilliant Evening Stars.

9. 천사장.

30:1.39 (331.28) 9. The Archangels.

10. 생명 운반자.

30:1.40 (331.29) 10. Life Carriers.

11. 계시되지 않은 우주 조력자.

30:1.41 (331.30) 11. Unrevealed Universe Aids.

12.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30:1.42 (331.31) 12. Unrevealed Sons of God.

B. **상비{常備} 계층**.

30:1.43 (331.32) B. *The Stationary Orders*.

1. 어밴돈터.

30:1.44 (331.33) 1. Abandoners.

2. 수사티아.

30:1.45 (331.34) 2. Susatia.

3. 유니비타시아.

30:1.46 (331.35) 3. Univitatia.

4. 스피롱가.

30:1.47 (331.36) 4. Spironga.

5. 계시되지 않은 이중_기원 존재.

30:1.48 (331.37) 5. Unrevealed Dual-origin Beings.

C. **상승하는 계층**.

30:1.49 (331.38) C. *The Ascending Orders*.

1. 조율사와 융합된 필사자.

30:1.50 (331.39) 1. Adjuster-fused Mortals.

2.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

30:1.51 (331.40) 2. Son-fused Mortals.

3. 영과 융합된 필사자.

30:1.52 (331.41) 3. Spirit-fused Mortals.

4. 전환된 중도자.

30:1.53 (331.42) 4. Translated Midwayers.

5. 계시되지 않은 상승자.

30:1.54 (331.43) 5. Unrevealed Ascenders.

셋{III}. **단일_기원 존재**.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한 분으로부터 기원된 자들, 그렇지 않으면 낙원 신격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손인 어느 한 존재가 창조한 자들.

30:1.55 (332.1) III. **SINGLE-ORIGIN BEINGS**. Those of origin in any one of the Paradise Deities or otherwise created by any one being of direct or indirect descent from the Paradise Deities.

A. **최상급 영**.

30:1.56 (332.2) A. *The Supreme Spirits*.

1. 인력 사자. 30:1.57 (332.3) 1. Gravity Messengers.
2. 일곱 하보나 회로 영. 30:1.58 (332.4) 2.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3. 12중 하보나 회로 보조체. 30:1.59 (332.5) 3. The Twelffold Adjutants of the Havona Circuits.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30:1.60 (332.6) 4. The Reflective Image Aids.
5. 우주 어머니 영. 30:1.61 (332.7) 5. Universe Mother Spirits.
6. 칠중 보조 정신_영. 30:1.62 (332.8) 6. The Sevenfold Adjutant Mind-Spirits.
7. 계시되지 않은 신격_기원 존재. 30:1.63 (332.9) 7. Unrevealed Deity-origin Beings.
- B. 상승하는 계층. 30:1.64 (332.10) B. *The Ascending Orders.*
1. 인격화된 조율사. 30:1.65 (332.11) 1. Personalized Adjusters.
2. 상승하는 물질 아들. 30:1.66 (332.12) 2. Ascending Material Sons.
3. 진화적 스라빔. 30:1.67 (332.13) 3. Evolutionary Seraphim.
4. 진화적 체루빔. 30:1.68 (332.14) 4. Evolutionary Cherubim.
5. 계시되지 않은 상승자. 30:1.69 (332.15) 5. Unrevealed Ascenders.
- C. 무한한 영의 가족. 30:1.70 (332.16) C.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1. 단독 사자. 30:1.71 (332.17) 1. Solitary Messengers.
2. 우주 회로 감독관. 30:1.72 (332.18)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3. 인구조사 지휘자. 30:1.73 (332.19) 3. Census Directors.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30:1.74 (332.20)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5. 부{副} 검사자. 30:1.75 (332.21) 5. Associate Inspectors.
6. 배정된 파수꾼. 30:1.76 (332.22) 6. Assigned Sentinels.
7. 졸업생 안내자. 30:1.77 (332.23) 7. Graduate Guides.
8. 하보나 하인. 30:1.78 (332.24) 8. Havona Servitals.
9. 우주 화해자. 30:1.79 (332.25) 9. Universal Conciliators.
10. 모론티아 동무. 30:1.80 (332.26) 10. Morontia Companions.
11. 최고스라빔. 30:1.81 (332.27) 11. Supernaphim.
12. 제2스라빔. 30:1.82 (332.28) 12. Seconaphim.
13. 제3스라빔. 30:1.83 (332.29) 13. Tertiaphim.
14. 전{全}스라빔. 30:1.84 (332.30) 14. Omniaphim.
15. 스라빔. 30:1.85 (332.31) 15. Seraphim.
16. 체루빔 및 사노빔. 30:1.86 (332.32) 16. Cherubim and Sanobim.
17. 계시되지 않은 영_기원 존재. 30:1.87 (332.33) 17. Unrevealed Spirit-origin Beings.
18.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 30:1.88 (332.34) 18.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19. 최상급 동력 중심. 30:1.89 (332.35) 19. The Supreme Power Centers.
20. 총괄 물리 통제관. 30:1.90 (332.36) 20.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21. 모론티아 동력 감독관. 30:1.91 (332.37) 21.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넷{IV}. **결말에 이른 초월 존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까지 대개 그 기원이 밝혀지지 않는, 방대한 무리의 초월 존재가 **낙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초월자**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며; 신성과 궁극성과 영원성을 가진 **결말에 이른** 자녀다. 이 “결말에 이른 자들”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곧 그들은 **유한절대**이며; 유한절대성은 무한성이 아니고 절대성도 아니다.

창조되지 않은 이 비창조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에게 늘 충성하고 **궁극자**에게 순종한다. 그들은 인격 활동의 네 궁극 수준에서 실존하고, 일곱 유한절대 수준에서 활동하는데, 유한절대 수준은 12개의 광역 부서로, 광역 부서는 1,000개의 주요 활동 집단으로 이뤄지고, 각각 일곱 분과를 둔다. 결말에 이른 이 존재들은 다음의 계층을 포함한다:

1. **총괄우주 건축가**.
2. **초월 기록원**.
3. **다른 초월자**.
4.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5.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

하나님은, 초월인격자로서 결말에 이르며;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창조하며; **하나님**은, 선{先}인격자로서 부분화 하며; 그의 그런 **조율사** 단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행동으로 인해 그런 필사 피조물에게 증여된 인격의 자유 의지적 선택에 따라, 물질 및 필사 정신 위에서 영혼이 자라게 한다.

다섯{V}. **신격의 부분화된 실재**. 살아있는 실존인 이 계층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유래하는데, **사고 조율사**가 가장 잘 예시하며, 그럼에도 이 실재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이전{人格以前} 실체의 유일한 단편은 결코 아니다. **조율사** 이외의 단편들의 기능은 다양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율사** 또는 그런 다른 단편과 융합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아버지**와 **융합된 존재**가 되게 한다.

아버지 단편들에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음에도,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이전{精神以前} 영의 단편들이 여기에 기록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실재들은 **조율사**와는 매우 많이 다르며; 그들은 **스피리팅** **톤**에 그렇게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인력 회로를 그렇게 횡단하지도 않으며; 또한 육신 속에서 사는 생애 동안, 필사 피조물 속에 거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조율사**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인격이전이 아니지만, 정신이전 영의 그런 단편들은 생존하는 특정한 필사자에게 증여되고, 그

30:1.92 (332.38) IV. EVENTUATED TRANSCENDENTAL BEINGS. There is to be found on Paradise a vast host of transcendental beings whose origin is not ordinarily disclos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until they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se Transcendentals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they are the *eventuated* children of divinity, ultimacy, and eternity. These “eventuators” are neither finite nor infinite — they are *absonite*; and absonity is neither infinity nor absoluteness.

30:1.93 (333.1) These uncreated noncreators are ever loyal to the Paradise Trinity and obedient to the Ultimate. They are existent on four ultimate levels of personality activity and are functional on the seven levels of the absonite in twelve grand divisions consisting of one thousand major working groups of seven classes each. These eventuated beings include the following orders:

30:1.94 (333.2) 1.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30:1.95 (333.3) 2. Transcendental Recorders.

30:1.96 (333.4) 3. Other Transcendentals.

30:1.97 (333.5) 4.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30:1.98 (333.6) 5.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30:1.99 (333.7) God, as a superperson, eventuates; God, as a person, creates; God, as a preperson, fragments; and such an Adjuster fragment of himself evolves the spirit soul upon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in accordance with the freewill choosing of the personality which has been bestowed upon such a mortal creature by the parental act of God as a Father.

30:1.100 (333.8) V. FRAGMENTED ENTITIES OF DEITY. This order of living existence, originating in the Universal Father, is best typified by the Thought Adjusters, though these entities are by no means the only fragmentations of the prepersonal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functions of the other-than-Adjuster fragments are manifold and little known. Fusion with an Adjuster or other such fragment constitutes the creature a *Father-fused being*.

30:1.101 (333.9) The fragmentations of the premind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ough hardly comparable to the Father fragments, should be here recorded. Such entities differ very greatly from Adjusters; they do not as such dwell on Spiritington, nor do they as such traverse the mind-gravity circuits; neither do they indwell mortal creatures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y are not prepersonal in the sense that the Adjusters are, but such fragments of premind spirit are bestowed upon certain of the surviving mortals, and fusion

런 융합은,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와는 달리, 그들을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되게 한다.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것은 **창조주 아들**의 개별화된 영인데, 이 영과의 합동은 피조물을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가 되게 한다. **신격**의 또 다른 단편들이 있다.

여섯{VI}. **인격을 초월한 존재**. 온갖 우주에는, 신성한 기원을 갖는, 그리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인격적이지_않은 광대한 무리가 있다. 이 존재 가운데 더러는 **아들의 낙원** 세계들에 거주하며; 더러는 **영원한 아들**의 초월 인격 대표자들처럼, 다른 데서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본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인격**있는 피조물에게 그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무익할 것이다.

일곱{VII}. **분류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계층**.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인격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존재를 현재 우주 시대에 관계된 분류표에 집어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그런 범주들이 본 문서에 모두 계시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수많은 계층이 이 목록표에서 제외됐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우주 운명 성취자.

궁극자의 조건적 대리인.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

태고 항존자들의 계시되지 않은 창조적 대행 기관.

낙원의 위엄자{威嚴者}.

위엄자의 이름 없는 반사성형성자 연락원.

지방우주들의 중간유한절대 계층.

여기에 밝혀진 것처럼, 이들 가운데 아무도 **낙원** 분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이 계층들이 함께 열거된 목록표에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분류되지 않은 소수이며; 너희는 계시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서 아직 배운 바 없다.

영들, 즉: 영 실재, 영 현존, 인격있는 영, 인격 이전 영, 인격을 초월한 영, 영 실존, 영 인격체들이 있다--그러나 필사자의 언어도 필사자의 지능도 적당하지 않다. 아무튼 우리는, "순전한 정신"에서 생겨난 인격체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영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실재도 인격을 가질 수 없다. 영적 에너지 또는 물리적 에너지와 연합되지 않은 어떤 정신 실재든지,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나 정신을 소유한 영 인격체들이 있다는 동일한 의미에서 볼 때, 영을 소유한

therewith constitutes them *Spirit-fused mortals* in contradistinction to Adjuster-fused mortals.

30:1.102 (333.10) Still more difficult of description is the individualized spirit of a Creator Son, union with which constitutes the creature a *Son-fused mortal*. And there are still other fragmentations of Deity.

30:1.103 (333.11) VI. *SUPERPERSONAL BEINGS*. There is a vast host of other-than-personal beings of divine origin and of manifold servic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Certain of these beings are resident on the Paradise worlds of the Son; others, like the super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Eternal Son, are encountered elsewhere. They are for the most part unmentioned in these narratives, and it would be quite futile to attempt their description to *personal* creatures.

30:1.104 (333.12) VII. *UNCLASSIFIED AND UNREVEALED ORDERS*.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place all beings, personal or otherwise, within classifications pertaining to the present universe age; nor have all such categories been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hence numerous orders have been omitted from these lists. Consider the following:

30:1.105 (333.13)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30:1.106 (333.14)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30:1.107 (334.1)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30:1.108 (334.2) The Unrevealed Creative Agencies of the Ancients of Days.

30:1.109 (334.3) Majeston of Paradise.

30:1.110 (334.4) The Unnamed Reflectivator Liaisons of Majeston.

30:1.111 (334.5) The Midsonite Orders of the Local Universes.

30:1.112 (334.6) No especial significance need attach to the listing of these orders together except that none of them appear in the Paradise classification as revealed herein. These are the unclassified few; you have yet to learn of the unrevealed many.

30:1.113 (334.7) There are spirits: spirit entities, spirit presences, personal spirits, prepersonal spirits, superpersonal spirits, spirit existences, spirit personalities — but neither mortal language nor mortal intellect are adequate. We may however state that there are no personalities of "pure mind"; no entity has personality unless he is endowed with it by God who is spirit. Any mind entity that is not associated with either spiritual or physical energy is not a personality. But in the same sense

정신 인격체들이 있다. **위엄자**와 그 동역자들은, 정신이 지배하는 존재의 상당히 좋은 예이지만,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인격체 유형에 대한 더 나은 사례{實例}가 있다. 정신 인격체 같은, 전부 계시되지 않은 계층도 있지만, 그들은 항상 영과 연합돼 있다. 계시되지 않은 어떤 다른 피조물은, 정신 에너지 인격체 및 물리 에너지 인격체로 명명될만한 어떤 존재들이다. 이 유형의 존재는 영 인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참된 인격체다--곧 **아버지**의 회로 안에 있다.

본 문서들은, 시간세계에 뻗뻗한 우주들과 영원한 중앙우주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며 경배하는, 살아있는 피조물, 창조자들, 결말에 이른 자들, 그리고 또 다른 실존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규명하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할 수 없다. 너희 필사자는 인격자이며; 따라서 우리가 인격화 된 존재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유한절대화** 된 존재를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2. 우버사 인격체 등록부

신성한 가족의 살아있는 존재들은 크게 일곱 부서로 **우버사**에 등록돼 있다:

1. **낙원 신격.**
2. **최상급 영.**
3.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
4. **하나님의 아들.**
5. **무한한 영의 인격체.**
6. **우주 동력 지휘자.**
7. **영원한 시민권의 단체.**

의지를 지닌 이 피조물 집단들은, 수많은 계층과 작은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다. 광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이 분류를 제시하는 것은, 본 문서들에서 계시된 계층의 지성 존재들을 진술하는 일에 주로 관여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이 **낙원**으로 진보해 올라가면서 상승 체험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목록은, 필사자 승천 기획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대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1}. **낙원 신격.**

1. **만유의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that there are spirit personalities who have mind there are mind personalities who have spirit. Majeston and his associates are fairly good illustrations of mind-dominated beings, but there are better illustrations of this type of personality unknown to you. There are even whole unrevealed orders of such *mind personalities*, but they are always spirit associated. Certain other unrevealed creatures are what might be termed *mindal- and physical-energy personalities*. This type of being is nonresponsive to spirit gravity but is nonetheless a true personality — is within the Father's circuit.

30:1.114 (334.8) These papers do not — cannot — even begin to exhaust the story of the living creatures, creators, eventulators, and still-otherwise-existent beings who live and worship and serve in the swarming universes of tim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You mortals are persons; hence we can describe beings who are *personalized*, but how could an *absonitized* being ever be explained to you?

2.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0:2.1 (334.9) The divine family of living beings is registered on Uversa in seven grand divisions:

- 30:2.2 (334.10) 1. The Paradise Deities.
- 30:2.3 (334.11) 2. The Supreme Spirits.
- 30:2.4 (334.12) 3. The Trinity-origin Beings.
- 30:2.5 (334.13) 4. The Sons of God.
- 30:2.6 (334.14) 5.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30:2.7 (334.15) 6.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 30:2.8 (334.16) 7. The Corps of Permanent Citizenship.

30:2.9 (334.17) These groups of will creatures are divided into numerous classes and minor subdivisions. The presentation of this classification of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is however chiefly concerned in setting forth those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who have been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most of whom will be encountered in the ascendant experience of the mortals of time on their progressive climb to Paradise. The following listings make no mention of vast orders of universe beings who carry forward their work apart from the mortal ascension scheme.

30:2.10 (335.1) 1. *THE PARADISE DEITIES.*

- 30:2.11 (335.2) 1. The Universal Father.
- 30:2.12 (335.3) 2. The Eternal Son.
- 30:2.13 (335.4) 3. The Infinite Spirit.

둘{II}. **최상급 영.**

1. 일곱 으뜸 영.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3. 일곱 집단의 반사하는 영들.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5. 일곱 회로 영.
6. 지방우주 창조적 영.
7. 보조 정신_영.

셋{III}.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2. 영원 향존자.
3. 태고 향존자.
4. 완성 향존자.
5. 최근 향존자.
6. 합동 향존자.
7. 충실 향존자.
8. 삼위일체 교사 아들.
9. 지혜 완성자.
10. 신성한 조언자.
11. 우주 검열관.
12. 영감된 삼위일체 영.
13. 하보나 원주민.
14. 낙원 시민.

넷{IV}. **하나님의 아들.**

A. **하강하는 아들.**

1. 창조주 아들--미가엘.
2. 집행관 아들--아보날.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데이날.
4. 멜기세덱 아들.
5. 보론다덱 아들.
6. 라노난덱 아들.
7. 생명 운반자 아들.

B. **상승하는 아들.**

1.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 **여기_유한된 필사자**

30:2.14 (335.5) II. **THE SUPREME SPIRITS.**

- 30:2.15 (335.6) 1. The Seven Master Spirits.
- 30:2.16 (335.7)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 30:2.17 (335.8) 3. The Seven Groups of Reflective Spirits.
- 30:2.18 (335.9) 4. The Reflective Image Aids.
- 30:2.19 (335.10)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 30:2.20 (335.11) 6.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 30:2.21 (335.12) 7. Adjutant Mind-Spirits.

30:2.22 (335.13) III. **THE TRINITY-ORIGIN BEINGS.**

- 30:2.23 (335.14)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 30:2.24 (335.15) 2. Eternals of Days.
- 30:2.25 (335.16) 3. Ancients of Days.
- 30:2.26 (335.17) 4. Perfections of Days.
- 30:2.27 (335.18) 5. Recents of Days.
- 30:2.28 (335.19) 6. Unions of Days.
- 30:2.29 (335.20) 7. Faithfuls of Days.
- 30:2.30 (335.21) 8. Trinity Teacher Sons.
- 30:2.31 (335.22) 9. Perfectioners of Wisdom.
- 30:2.32 (335.23) 10. Divine Counselors.
- 30:2.33 (335.24) 11. Universal Censors.
- 30:2.34 (335.25) 12. Inspired Trinity Spirits.
- 30:2.35 (335.26) 13. Havona Natives.
- 30:2.36 (335.27) 14. Paradise Citizens.

30:2.37 (335.28) IV. **THE SONS OF GOD.**

30:2.38 (335.29) A. **Descending Sons.**

- 30:2.39 (335.30) 1. Creator Sons — Michaels.
- 30:2.40 (335.31) 2. Magisterial Sons — Avonals.
- 30:2.41 (335.32) 3. Trinity Teacher Sons — Daynals.
- 30:2.42 (335.33) 4. Melchizedek Sons.
- 30:2.43 (335.34) 5. Vorondadek Sons.
- 30:2.44 (335.35) 6. Lanonandek Sons.
- 30:2.45 (335.36) 7. Life Carrier Sons.

30:2.46 (335.37) B. **Ascending Sons.**

- 30:2.47 (335.38) 1. Father-fused Mortals.
- 30:2.48 (335.39) 2. Son-fused Mortals.

30:2.49 (335.40) 3. **Spirit-fused Mortals**

3. 강박_강화된 불사사.

4. 진화적 스라빔.

5. 상승하는 물질 아들.

6. 전환된 중도자.

7. 인격화된 조율사.

C.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1. 강력한 사자.

2. 권세 높은 이.

3.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4.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

5. 삼위일체처럼된 대사.

6. 천상의 수호자.

7. 고등 아들 보좌관.

8. 삼위일체처럼된_상승자 아들.

9. 삼위일체처럼된_낙원_하보나 아들.

10. 삼위일체처럼된 운명 아들.

다섯{V}. 무한한 영의 인격체.

A.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

1. 단독 사자.

2. 우주 회로 감독관.

3. 인구조사 지휘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5. 부{副} 검사자.

6. 배정된 파수꾼.

7. 졸업생 안내자.

B. 공간의 사자 군대.

1. 하보나 하인.

2. 우주 화해자.

3. 법해석 고문.

4. 낙원의 기록 관리인.

5. 천상의 기록원.

6. 모론시아 동무.

7. 낙원 동무.

C. 돌보는 영.

1. 최고스라빔.

3. Spiritized mortals.

30:2.50 (335.41) 4. Evolutionary Seraphim.

30:2.51 (335.42) 5. Ascending Material Sons.

30:2.52 (335.43) 6. Translated Midwayers.

30:2.53 (335.44) 7. Personalized Adjusters.

30:2.54 (336.1) C. Trinitized Sons.

30:2.55 (336.2) 1. Mighty Messengers.

30:2.56 (336.3) 2. Those High in Authority.

30:2.57 (336.4) 3.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30:2.58 (336.5) 4. Trinitized Custodians.

30:2.59 (336.6) 5. Trinitized Ambassadors.

30:2.60 (336.7) 6. Celestial Guardians.

30:2.61 (336.8) 7. High Son Assistants.

30:2.62 (336.9) 8. Ascender-trinitized Sons.

30:2.63 (336.10) 9.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30:2.64 (336.11) 10. Trinitized Sons of Destiny.

30:2.65 (336.12) V.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30:2.66 (336.13) A.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30:2.67 (336.14) 1. Solitary Messengers.

30:2.68 (336.15)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30:2.69 (336.16) 3. Census Directors.

30:2.70 (336.17)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30:2.71 (336.18) 5. Associate Inspectors.

30:2.72 (336.19) 6. Assigned Sentinels.

30:2.73 (336.20) 7. Graduate Guides.

30:2.74 (336.21) B.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30:2.75 (336.22) 1. Havona Servitals.

30:2.76 (336.23) 2. Universal Conciliators.

30:2.77 (336.24) 3. Technical Advisers.

30:2.78 (336.25) 4.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30:2.79 (336.26) 5. Celestial Recorders.

30:2.80 (336.27) 6. Morontia Companions.

30:2.81 (336.28) 7. Paradise Companions.

30:2.82 (336.29) C. The Ministering Spirits.

30:2.83 (336.30) 1. Supernaphim.

2. 제2스라빔. 30:2.84 (336.31) 2. Seconaphim.
 3. 제3스라빔. 30:2.85 (336.32) 3. Tertiaphim.
 4. 전{全}스라빔. 30:2.86 (336.33) 4. Omniaphim.
 5. 스라빔. 30:2.87 (336.34) 5. Seraphim.
 6. 체루빔 및 사노빔. 30:2.88 (336.35) 6. Cherubim and Sanobim.
 7. 중도자. 30:2.89 (336.36) 7. Midwayers.
- 여섯{VI}. 우주 동력 지휘자. 30:2.90 (336.37) VI.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 A.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30:2.91 (336.38) A.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 B. 최상급 동력 중심. 30:2.92 (336.39) B. Supreme Power Centers.
1. 최고 중심 간독관. 30:2.93 (336.40)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2. 하보나 중심. 30:2.94 (336.41) 2. Havona Centers.
 3. 연방우주 중심. 30:2.95 (336.42) 3. Superuniverse Centers.
 4. 지방우주 중심. 30:2.96 (336.43) 4. Local Universe Centers.
 5. 성좌 중심. 30:2.97 (336.44) 5. Constellation Centers.
 6. 체계 중심. 30:2.98 (336.45) 6. System Centers.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30:2.99 (336.46) 7. Unclassified Centers.
- C. 총괄 물리 통제관. 30:2.100 (337.1) C. Master Physical Controllers.
1. 부{副} 동력 지휘자. 30:2.101 (337.2) 1. Associate Power Directors.
 2. 기계적 통제관. 30:2.102 (337.3) 2. Mechanical Controllers.
 3. 에너지 변환자. 30:2.103 (337.4) 3. Energy Transformers.
 4. 에너지 전송자. 30:2.104 (337.5) 4. Energy Transmitters.
 5. 1차 연합자. 30:2.105 (337.6) 5. Primary Associators.
 6. 2차 분리자. 30:2.106 (337.7) 6. Secondary Dissociators.
 7. 후랜달랭크 및 크로놀덱. 30:2.107 (337.8) 7. Frandalanks and Chronoldeks.
- D. 모론티아 동력 감독관. 30:2.108 (337.9) D. Morontia Power Supervisors.
1. 회로 조절가. 30:2.109 (337.10) 1. Circuit Regulators.
 2. 체계 조정자. 30:2.110 (337.11) 2. System Co-ordinators.
 3. 행성 관리인. 30:2.111 (337.12) 3. Planetary Custodians.
 4. 혼합된 통제관. 30:2.112 (337.13) 4. Combined Controllers.
 5. 접촉 안정가. 30:2.113 (337.14) 5. Liaison Stabilizers.
 6. 선택적 분류자. 30:2.114 (337.15) 6. Selective Assorters.
 7. 부{副} 등록관. 30:2.115 (337.16) 7. Associate Registrars.
- 일곱{VII}. 영구 시민권 단체. 30:2.116 (337.17) VII. THE CORPS OF PERMANENT CITIZENSHIP.
1. 행성 중도자. 30:2.117 (337.18) 1. The Planetary Midwayers.
 2. 체계의 아담 아들. 30:2.118 (337.19) 2. The Adamic Sons of the Systems.

3. 성좌 유니비타티아.

30:2.119 (337.20) 3. The Constellation Univitatia.

4. 지방우주 수사티아.

30:2.120 (337.21) 4. The Local Universe Susatia.

5. 영과_융합된 지방우주 필사자.

30:2.121 (337.22) 5. Spirit-fused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s.

6. 연방우주 어밴돈터.

30:2.122 (337.23) 6. The Superuniverse Abandoners.

7. 아들과_융합된 연방우주 필사자.

30:2.123 (337.24) 7. Son-fused Mortals of the Superuniverses.

8. 하보나 원주민.

30:2.124 (337.25) 8. The Havona Natives.

9. 영의 낙원 구체 원주민.

30:2.125 (337.26) 9. Natives of th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10. 아버지의 낙원 원주민.

30:2.126 (337.27) 10. Natives of the Father's Paradise Spheres.

11. 창조된 낙원 시민.

30:2.127 (337.28) 11. The Created Citizens of Paradise.

12. 조율사와_융합된 낙원 필사자 시민.

30:2.128 (337.29) 12. Adjuster-fused Mortal Citizens of Paradise.

이것이 **우버사** 본부 세계의 기록에 있는, 여러 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실무 분류다.

30:2.129 (337.30) This is the working classification of th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s as they are of recor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Uversa.

혼합 인격체 집단. 우버사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집단의 지성 존재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 역시 광우주의 조직과 경영에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그런 계층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혼합 인격체 집단이 있다:

30:2.130 (337.31) **COMPOSITE PERSONALITY GROUPS.** There are on Uversa the records of numerous additional groups of intelligent beings, beings that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mong such orders are the following three composite personality groups:

A. 낙원 완결성취 단체.

30:2.131 (337.32) A.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

30:2.132 (337.33) 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2. 낙원 완결성취자 단체.

30:2.133 (337.34) 2. The Corps of Paradise Finaliters.

3.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

30:2.134 (337.35) 3.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4.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

30:2.135 (337.36) 4.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5.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

30:2.136 (337.37) 5.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6.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

30:2.137 (337.38) 6.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 단체.

30:2.138 (337.39) 7. The Corps of Unrevealed Sons of Destiny.

필사 완결성취 단체는, 다음에 이어지는, 1부의 마지막 문서에서 취급된다.

30:2.139 (337.40)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is dealt with in the next and final paper of this series.

B. 우주 조력자.

30:2.140 (338.1) B. *The Universe Aids.*

1. 빛나는 새벽별.

30:2.141 (338.2) 1. Bright and Morning Stars.

2. 찬란한 저녁별.

30:2.142 (338.3) 2. Brilliant Evening Stars.

3. 천사장.

30:2.143 (338.4) 3. Archangels.

4. 지고{至高} 보좌관.

30:2.144 (338.5) 4. Most High Assistants.

5. 고등 위원.

30:2.145 (338.6) 5. High Commissioners.

6. 천상의 감독자.

30:2.146 (338.7) 6. Celestial Overseers.

7. 맨션세계 교사.

30:2.147 (338.8) 7. Mansion World Teachers.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모든 본부 세계에서는, 지방우주 통치자인 **창조주 아들**을 위해 특별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위한 준비가 돼있다. 우리는 이 **우주 조력자**들을 **우버사**에서 맞이하지만, 그들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그런 밀사{密使}들은 **창조주 아들**들의 권세 아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관찰 업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너희 지방우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더 충분히 설명된다.

30:2.148 (338.9) On all headquarters worlds of both local and superuniverses, provision is made for these beings who are engaged in specific missions for the Creator Sons, the local universe rulers. We welcome these *Universe Aids* on Uversa, but we have no jurisdiction over them. Such emissaries prosecute their work and carry on their observations under authority of the Creator Sons. Their activities are more fully described in the narrative of your local universe.

C. 일곱 우대 거류민.

30:2.149 (338.10) C. *The Seven Courtesy Colonies.*

1. 별 연구자.

30:2.150 (338.11) 1. Star Students.

2. 천상의 기능공.

30:2.151 (338.12) 2. Celestial Artisans.

3. 회상 지휘자.

30:2.152 (338.13) 3. Reversion Directors.

4. 연장_학교 교관.

30:2.153 (338.14) 4. Extension-school Instructors.

5. 다양한 예비 단체.

30:2.154 (338.15) 5. The Various Reserve Corps.

6. 연구원 방문자.

30:2.155 (338.16) 6. Student Visitors.

7. 상승하는 순례자.

30:2.156 (338.17) 7. Ascending Pilgrims.

이 일곱 집단의 존재는, 지역 체계들로부터 연방우주 수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후자{後者}에서, 모든 본부 세계에서 그렇게 조직되고 통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 연방우주 수도는 거의 모든 부류와 계층의 지성 존재가 모이는 장소다. 수많은 집단의 **낙원_하보나** 주민은 제외하고, 의지를 지닌 실존하는 각 단계의 피조물을 여기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

30:2.157 (338.18) These seven groups of beings will be found thus organized and governed on all headquarters worlds from the local systems up to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particularly the latter. The capital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the meeting places for almost all classes and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With the exception of numerous groups of Paradise-Havoners, here the will creatures of every phase of existence may be observed and studied.

3. 우대 거류민

3. THE COURTESY COLONIES

일곱 우대 거류민은, 자신의 사명을 추진하고 자신의 특별 임무를 이행하면서, 길거나 짧게 여러 건축양식 구체에 머문다. 그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0:3.1 (338.19) The seven courtesy colonies sojourn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for a longer or shorter time while engaged in the furtherance of their missions and in the execution of their special assignments. Their work may be described as follows:

1. **별 연구자**들은, 천상의 천문학자인데, **우버사** 같은 구체에서 활동하기로 선택하며, 특별히 건축된 그런 세계가 그들의 관측과 계산에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버사**는 이 거류민의 활동에 유리한 상태에 있는데,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만 아니라, 살아있거나 죽은 거대한 항성들이 에너지 흐름을 교란시킬 만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자들은 연방우주 직무와 어떤 면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으며; 손님일 뿐이다.

30:3.2 (338.20) 1. *The Star Students*, the celestial astronomers, choose to work on spheres like Uversa because such specially constructed worlds are unusually favorable for their observations and calculations. Uversa is favorably situated for the work of this colony, not only because of its central location, but also because there are no gigantic living or dead suns near at hand to disturb the energy currents. These students are not in any manner organically connected with the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우버사의 천문{天文} 거류민은, 근처에 있는 여러 영역으로부터, 즉 중앙우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노라티아덱**으로부터 오는 개체들을 포함한다. 어느 우주의 어느 체계의 어느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별 연구자가 될 수 있는데, 천상의 어떤 천문학자 단체에 가담하기를 바랄 수 있다. 유일한 필요조건은: 생애를 계속하는 것과,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 대한, 특히 진화와 통제라는 물리 법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다. 별 연구자들은 이 단체에서 영구히 근무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집단에 가입한 자는 누구든지 **우버사** 시간으로 1,000년 내에는 그만 둘 수 없다.

우버사의 별_관찰자 거류민은 지금 100만 명 이상이다. 더러는 비교적 긴 기간 머물기는 하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들은 수많은 기계 도구와 물리 장치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수행하며; 또한 **단독 사자** 및 기타 영 탐험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 이 천상의 천문학자들은, 별 연구와 공간 측량을 하는 업무에서, 살아있는 에너지 변환자 및 전송자 뿐만 아니라 반사 인격체들을 계속 활용한다. 그들은 공간 물질과 에너지 형태화의 모든 형태와 국면 전부를 연구하고, 별들의 현상만큼 세력의 작용에도 똑같이 관여하며; 전체 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면밀한 조사를 피할 수 없다.

비슷한 천문학자 거류민이, 연방우주 구역 본부뿐 아니라, 지방우주들 및 그 경영 하위부서의 건축양식 수도에서도 발견되게 돼 있다. **낙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물리적 우주에 대한 이해는 주로 관찰과 연구에 의존한다.

2. **천상의 기능공**들은 일곱 연방우주 전역에서 근무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생애에서 이 집단들과 처음 접촉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기능공들이 더 충분하게 논의될 것이다.

3. **회상{回想} 지휘자**들은 휴양과 유머를 증진시키는--곧 과거의 기억으로 복귀시키는-- 자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상승 기획이 실용적으로 작동될 때, 특히 모론시아 변환 및 영 체험의 초기 국면 동안, 대단히 공헌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방우주의 필사자 생애에 관한 문서에 속한다.

4. **연장_학교 교관**. 상승하는 생애에서 다음 단계의 높은 거주 세계는, 교사들의 강력한 단체, 즉 그 구체의 진보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를 바로 아래 세계에 항상 유지하며; 이것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상승

they are merely guests.

30:3.3 (338.21) The astronomical colony of Uversa contains individuals from many near-by realms, from the central universe, and even from Norlatiadek. Any being on any world in any system of any universe may become a star student, may aspire to join some corps of celestial astronomers. The only requisites are: continuing life an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orlds of space, especially their physical laws of evolution and control. Star students are not required to serve eternally in this corps, but no one admitted to this group may withdraw under one millennium of Uversa time.

30:3.4 (339.1) The star-observer colony of Uversa now numbers over one million. These astronomers come and go, though some remain for comparatively long periods. They carry on their work with the aid of a multitude of mechanical instruments and physical appliances; they are also greatly assisted by the Solitary Messengers and other spirit explorers. These celestial astronomers make constant use of the living energy transformers and transmitters, as well as of the reflective personalities, in their work of star study and space survey. They study all forms and phases of space material and energy manifestations, and they are just as much interested in force function as in stellar phenomena; nothing in all space escapes their scrutiny.

30:3.5 (339.2) Similar astronomer colonies are to be found on the sector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 as well as on the architectural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i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Except on Paradise, knowledge is not inherent;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universe is largely dependent on observation and research.

30:3.6 (339.3) 2. *The Celestial Artisans* serve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Ascending mortals have their initial contact with these groups in the morontia career of the local univer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se artisans will be more fully discussed.

30:3.7 (339.4) 3. *The Reversion Directors* are the promoters of relaxation and humor — reversion to past memories. They are of great service i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ascending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especially during the earlier phases of morontia transition and spirit experience. Their story belongs to the narrative of the mortal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30:3.8 (339.5) 4. *Extension-School Instructors*. The next higher residential world of the ascendant career always maintains a strong corps of teachers on the world just below, a sort of preparatory school for the progressing residents of

기획의 한 국면이다. 이 학교들은, 즉 훈육과 시험에 대한 그들의 방법은, **유란시아**에서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

필사자 진보라는 전체 상승 계획의 특징은, 새로운 진리와 체험을 획득하자마자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주는 실습이다. 너희는, 진보의 척도에서 바로 너희 뒤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으로서 봉사함으로써, **낙원**에 도달하는 오랜 학교생활을 일하면서 마칠 것이다.

5. **다양한 예비 단체**. 우리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광대한 존재의 예비군이, **우버사**에 예비_단체 거류민으로 동원돼 있다. **우버사**에는 이 거류민이 70개의 주요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비범한 인격체들과 어느 기간 함께 보내도록 자유 교육이 허용된다. 비슷한 일반 예비군이 **살빙톤** 및 기타 우주 수도에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은 각자의 집단 지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역{現役} 근무에 파견된다.

6. **연구원 방문자**. 온 우주로부터, 천상의 방문자들이 다양한 본부 세계들을 통해서 쏟아지듯 계속 들어온다. 개인 및 계층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 존재가, 관찰자, 교환 학생, 및 학생 도우미로서 우리에게 몰려온다. 현재 **우버사**에는, 이 우대 거류지에 10억 명 이상의 인격자가 있다. 이 방문자 가운데 더러는 하루 머물 수 있고, 더러는 1년도 머물 수 있는데, 모두 자기 사명의 본질에 따라서 다르다. 이 거류민은, **창조주** 인격체와 모론시아 필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의 우주 존재를 포함한다.

모론시아 필사자는,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 경계선 안에서만 학생 방문자가 된다. 그들은 영신분을 달성한 후에만, 연방우주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방문자 거류민 가운데 꼭 절반이, “단기 체류자”, 즉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오르본톤** 수도를 방문하기 위해 머무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격체들은 아마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어떤 기간의 휴식을--곧 임무로부터 해방됨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부우주를 여행하고 관찰하는 특권은, 상승하는 전체 존재의 생애 가운데 일부다. 여행하여 새로운 세계와 민족을 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지방우주,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를 통해서 **낙원**으로 올라가는 길고 다사한 상승 기간에 충분히 채워질 것이다.

7. **상승하는 순례자**.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낙원** 진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근무에 배정될 때, 다양한 본부 구체에서 우대 거류민으로서 산다. 연방우주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동안, 그런 집단들은 대체로 자치{自治}한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진화 필사자와 상승하는 동역자들을 포함하는, 늘_변동하는 거류민이다.

that sphere; this is a phase of the ascendant scheme for advancing the pilgrims of time. These schools, their methods of instruction and examinations, are wholly unlike anything which you essay to conduct on Urantia.

30:3.9 (339.6) The entire ascendant plan of mortal progression is characterized by the practice of giving out to other beings new truth and experience just as soon as acquired. You work your way through the long school of Paradise attainment by serving as teachers to those pupils just behind you in the scale of progression.

30:3.10 (339.7) 5. *The Various Reserve Corps*. Vast reserves of beings not under our immediate supervision are mobilized on Uversa as the reserve-corps colony. There are seventy primary divisions of this colony on Uversa, and it is a liberal education to be permitted to spend a season with these extraordinary personalities. Similar general reserves are maintained on Salvington and other universe capitals; they are dispatched on active service on the requisition of their respective group directors.

30:3.11 (339.8) 6. *The Student Visitors*. From all the universe a constant stream of celestial visitors pours through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s individuals and as classes these various types of beings flock in upon us as observers, exchange pupils, and student helpers. On Uversa, at present, there are over one billion persons in this courtesy colony. Some of these visitors may tarry a day, others may remain a year, all dependent on the nature of their mission. This colony contains almost every class of universe beings except Creator personalities and morontia mortals.

30:3.12 (340.1) Morontia mortals are student visitors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origin. They may visit in a superuniverse capacity only after they have attained spirit status. Fully one half of our visitor colony consists of “stopovers,” beings en route elsewhere who pause to visit the Orvonton capital. These personalities may be executing a universe assignment, or they may be enjoying a period of leisure — freedom from assignment. The privilege of intrauniverse travel and observation is a part of the career of all ascending beings. The human desire to travel and observe new peoples and worlds will be fully gratified during the long and eventful climb to Paradise through the local, super-, and central universes.

30:3.13 (340.2) 7. *The Ascending Pilgrims*. As the ascending pilgrims are assigned to various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ir Paradise progression, they are domiciled as a courtesy colony on the various headquarters spheres. While functioning here and there throughout a superuniverse, such groups are largely self-governing. They are an ever-shifting colony

4. 상승하는 필사자

낙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자격을 얻을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 생존자들을 상승하는 순례자라고 부르는 한편, 이 진화 피조물은 본 문서들에 들어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상승하는 우주 생애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성 필사자.
2. 잠자는 생존자.
3. 맨션 세계 학생.
4. 모론시아 진보자.
5. 연방우주 피보호자.
6. 하보나 순례자.
7. 낙원 도착자.

다음 이야기는 조울사가 내주했던 필사자의 우주 생애를 보여준다. 아들과 융합된, 그리고 영과 융합된 필사자들도, 이 생애 가운데 여러 부분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울사와 융합된 필사자들에 속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런 운명이 유란시아 인간 종족 전체에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1. **행성 필사자.** 필사자는 모두 상승 잠재력을 가진, 동물에서 기원된 진화 존재다. 기원과 본성 그리고 운명에서, 다양한 이 집단 및 유형의 인간은, 유란시아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각 세계의 인간 종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보살핌을 똑같이 받고,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의 현존을 향유한다. 자연사{自然死} 이후에, 모든 유형의 상승자는 맨션 세계들에서 하나의 모론시아 가족으로서 사귄다.

2. **잠자는 생존자.** 개인 운명 수호자가 관리하는, 생존하는 신분을 갖는 모든 필사자는, 자연사의 문을 통과하고, 셋째 기간에 맨션 세계들에서 인격화한다. 승인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 수호자를 가질 만한 수준의 지성 숙련 및 영적 자질에 도달할 수 없었던 존재들은, 그렇게 즉시 직접 맨션 세계로 갈 수 없다. 생존하는 그런 혼들은, 새 시기, 즉 그 영역을 판결하고 그 시대의 출석점호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새 섭리시대의 심판 날까지, 무의식 수면 속에서 쉬어야 하며, 이것은 전체 네바돈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 관례다. 미가엘 그리스도가 지구에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높은 곳으로 상승했을 때, 그에 관해서, “그는 큰 무리의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아담 시대 이후 유란시아에서 주님의 부활 때까지, 잠자고 있던 생존자였다.

embracing all orders of evolutionary mortals and their ascending associates.

4. THE ASCENDING MORTALS

30:4.1 (340.3) While the mortal survivors of time and space are denominated *ascending pilgrims* when accredited for the progressive ascent to Paradise, these evolutionary creatures occupy such an important place in these narratives that we here desire to present a synopsis of the following seven stages of the ascending universe career:

- 30:4.2 (340.4) 1. Planetary Mortals.
- 30:4.3 (340.5) 2. Sleeping Survivors.
- 30:4.4 (340.6) 3. Mansion World Students.
- 30:4.5 (340.7) 4. Morontia Progressors.
- 30:4.6 (340.8) 5. Superuniverse Wards.
- 30:4.7 (340.9) 6. Havona Pilgrims.
- 30:4.8 (340.10) 7. Paradise Arrivals.

30:4.9 (340.11) The following narrative presents the universe career of an Adjuster-indwelt mortal. The Son- and Spirit-fused mortals share portions of this career, but we have elected to tell this story as it pertains to the Adjuster-fused mortals, for such a destiny may be anticipated by all of the human races of Urantia.

30:4.10 (340.12) 1. *Planetary Mortals.* Mortals are all animal-origin evolutionary beings of ascendant potential.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these various groups and types of human beings are not wholly unlike the Urantia peoples. The human races of each world receive the same ministry of the Sons of God and enjoy the presence of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fter natural death all types of ascenders fraternize as one morontia family on the mansion worlds.

30:4.11 (341.1) 2. *Sleeping Survivors.* All mortals of survival status, in the custody of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pass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and, on the third period, personalize on the mansion worlds. Those accredited beings who have, for any reason, been unable to attain that level of intelligence mastery and endowment of spirituality which would entitle them to personal guardians, cannot thus immediately and directly go to the mansion worlds. Such surviving souls must rest in unconscious sleep until the judgment day of a new epoch, a new dispensation, the coming of a Son of God to call the rolls of the age and adjudicate the realm, and this is the general practice throughout all Nebadon. It was said of Christ Michael that, when he ascended on high at the conclusion of his work on earth, “He led a

시간 경과를 잠자는 필사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으며; 그들은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고, 자신의 휴식기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한 시대가 끝나면서 인격이 재조립될 때, 5,000년 동안 잠자던 그들은 5일 쉰 자들과 전혀 차이 없이 다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생존자들은, 길든지 짧든지, 이 시간 지연 외에는, 죽음의 수면상태를 격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상승 체제를 통과해 지나간다.

이 섭리시대 계층의 세상 순례자들은, 지방우주 업무에서 모론시아 집단 활동을 위해 활용된다. 그런 거대한 집단을 동원하는 데는 큰 이점이 있는데;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함께 둔다.

3. **맨션 세계 학생**. 맨션 세계들에서 다시 깨어나는, 생존하는 모든 필사자가 이 계층에 속한다.

필사자 육신이라는 물리적 몸은, 잠자는 생존자를 재조립한 몸의 일부분이 아니며; 물리적 몸은 먼지로 돌아갔다. 임무배정 스라빔이 새로운 몸, 즉 모론시아 형태를 후원하는데, 이 몸은 불멸하는 혼을 위한, 그리고 돌아온 **조율사**가 내주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 운반체다. **조율사**는 잠자는 생존자 정신의 영 이력서(履歷書)를 보관하는 존재다. 배정된 스라빔은, 생존하는 정체성을--곧 불멸하는 혼을-- 그것이 진화를 마칠 때까지 보호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두 존재, 즉 **조율사**와 스라빔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인격을 재결합시킬 때, 새로운 개체는 옛 인격의 부활, 즉 그 혼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정체성이 생존한 것이다. 혼과 **조율사**의 그런 재결합은, 부활, 즉 인격 요소들의 재조립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만; 이것조차, 생존하는 인격의 재출현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리 사실을 아마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필사자 생존 계획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 그 진리를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일곱 세계에 필사자를 초기에 붙잡아두는 계획은, **오르본톤**에서 거의 보편적이다. 약 1,000개의 인간거주 행성으로 구성된 각 지역 체계마다 일곱 맨션 세계가 있는데, 대개 체계 수도의 위성들 또는 하위위성들이다. 이 위성들은 상승하는 필사자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계다.

때로는 필사자 거주지에 속하는 모든 훈련 세계를 우주 “맨션들”이라고 부르며,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런 구체들을 암시했다. 상승자들은 여기서부터 줄곧, 맨션 세계 같은 일정한 구체들 집단 안에

great multitude of captives.” And these captives were the sleeping survivors from the days of Adam to the day of the Master’s resurrection on Urantia.

30:4.12 (341.2) The passing of time is of no moment to sleeping mortals; they are wholly unconscious and oblivious to the length of their rest. On reassembly of personality at the end of an age, those who have slept five thousand years will react no differently than those who have rested five days. Aside from this time delay these survivors pass on through the ascension regime identically with those who avoid the longer or shorter sleep of death.

30:4.13 (341.3) These dispensational classes of world pilgrims are utilized for group morontia activities in the work of the local universes. There is a great advantage in the mobilization of such enormous groups; they are thus kept together for long periods of effective service.

30:4.14 (341.4) 3. *Mansion World Students*. All surviving mortals who reawaken on the mansion worlds belong to this class.

30:4.15 (341.5) The physical body of mortal flesh is not a part of the reassembly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physical body has returned to dust. The seraphim of assignment sponsors the new body, the morontia form, as the new life vehicle for the immortal soul and for the indwelling of the returned Adjuster. The Adjuster is the custodian of the spirit transcript of the mind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assigned seraphim is the keeper of the surviving identity — the immortal soul — as far as it has evolved. And when these two, the Adjuster and the seraphim, reunite their personality trusts, the new individual constitutes the resurrection of the old personality, the survival of the evolving morontia identity of the soul. Such a reassociation of soul and Adjuster is quite properly called a resurrection, a reassembly of personality factors; but even this does not entirely explain the reappearance of the surviving *personality*. Though you will probably never understand the fact of such an inexplicable transaction, you will sometime experientially know the truth of it if you do not reject the plan of mortal survival.

30:4.16 (341.6) The plan of initial mortal detention on seven worlds of progressive training is nearly universal in Orvonton. In each local system of approximately one thousand inhabited planets there are seven mansion worlds, usually satellites or subsatellites of the system capital. They are the receiving worlds for the majority of ascending mortals.

30:4.17 (341.7) Sometimes all training worlds of mortal residence are called universe “mansions,” and it was to such spheres that Jesus alluded when he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From here on, within a given group of

서, 한 구체에서 다음 구체로, 생애의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개별적으로 진보하겠지만, 한 우주 연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보할 때에는 항상 학급 단위로 한다.

4. 모론티아 진보자. 맨션 세계들로부터 위쪽으로, 체계, 성좌, 및 지방우주의 구체들을 통과하기까지, 필사자는 모론티아 진보자로 분류되며; 필사자 상승의 변환 구체들을 거쳐서 간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모론티아 세계 가운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진보할 때, 자신의 선생들과 연합하고, 자신보다 더 진보되거나 선배인 형제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정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모론티아 진보는, 지능, 영, 및 인격 형태의 계속적인 승진과 관계있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세 가지 본성을 갖는 존재다. 그들은 전체 모론티아 체험 내내, 지방우주의 피보호자다. 영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연방우주 체제는 작용하지 않는다.

필사자는, 연방우주 소구역에 있는 영접 세계들을 향해서 지방우주 본부를 떠나기 직전에, 참된 영 신분을 획득한다. 마지막 모론티아 단계로부터, 첫째 영 신분, 즉 가장 낮은 영 신분으로 지나가는 것은 보잘것없는 변화에 불과하다. 정신, 인격, 및 성품은 그런 진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태만 변경을 겪을 뿐이다. 그러나 영 형태는, 모론티아 본체와 똑같이 실제적이고, 똑같이 식별 가능하다.

그들이 태어난 지방우주로부터, 연방우주 영접 세계를 향해서 떠나기 전에, 시간세계의 필사자는 영이 됐다는 확인을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받는다. 이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필사자 신분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다. 연방우주 피보호자들은 타락했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상승하는 스라빔 역시, 지방우주로부터 떠날 때 천사 신분에서 승진한다.

5. 연방우주 피보호자. 연방우주의 여러 훈련 세계에 도착하는 모든 상승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피보호자가 되며; 지방우주의 모론티아 생애를 다 거쳤고, 이제는 공인된 영이다. 그들은 어린 영으로서 연방우주의 훈련 및 문화{文化} 체계에서 상승을 시작하는데, 그 체계는 그들의 소구역 영접 구체로부터, 열 개의 대구역 연구 세계를 거쳐서, 연방우주 본부의 비교적 높은 문화 구체까지 연장된다.

영이 진보하면서, 소구역, 대구역, 및 연방우주 본부에 그들이 머무는 것에 따라, 세 가지 계층의 학생 영이 있다. 모론티아 상승자가 지방우주 세계들에서 연구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영 상승자는 지혜의 체험적 원천들에서 자신이 흡수해 왔던

spheres like the mansion worlds, ascenders will progress individually from one sphere to another and from one phase of life to another, but they will always advance from one stage of universe study to another in class formation.

30:4.18 (342.1) 4. *Morontia Progressors.* From the mansion worlds on up through the spheres of the system,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mortals are classed as morontia progressors; they are traversing the transition spheres of mortal ascension. As the ascending mortals progress from the lower to the higher of the morontia worlds, they serve on countless assignments in association with their teachers and in company with their more advanced and senior brethren.

30:4.19 (342.2) Morontia progression pertains to continuing advancement of intellect, spirit, and personality form. Survivors are still three-natured beings. Throughout the entire morontia experience they are wards of the local universe. The regime of the superuniverse does not function until the spirit career begins.

30:4.20 (342.3) Mortals acquire real spirit identity just before they leave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receiving worlds of the min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Passing from the final morontia stage to the first or lowest spirit status is but a slight transition. The mind, personality, and character are unchanged by such an advance; only does the form undergo modification. But the spirit form is just as real as the morontia body, and it is equally discernible.

30:4.21 (342.4) Before departing from their native local universes for the superuniverse receiving worlds, the mortals of time are recipients of spirit confirmation from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rom this point on, the status of the ascending mortal is forever settled. Superuniverse wards have never been known to go astray. Ascending seraphim are also advanced in angelic standing at the time of their departure from the local universes.

30:4.22 (342.5) 5. *Superuniverse Wards.* All ascenders arriving on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become the ward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have traversed the morontia life of the local universe and are now accredited spirits. As young spirits they begin the ascension of the superuniverse system of training and culture, extending from the receiving spheres of their minor sector in through the study worlds of the ten major sectors and on to the higher cultural spheres of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30:4.23 (342.6) There are three orders of student spirits in accordance with their sojourn upon the minor sector, major sectors, and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worlds of spirit progression. As morontia ascenders studied and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들을 계속 숙지해 간다. 그러나 연방우주 생애에서 영 존재로 학교에 가는 일은, 물질 정신을 가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에 전에 들어갔던 어떤 경우와도 전혀 다르다.

상승하는 이 영들은, **하보나**를 향해서 연방우주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지방우주 감독 하에 모론시아 체험을 하는 동안 받았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연방우주 관리 과정을 밟는다. 영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주요 연구는, 유일한 직업은 아니지만,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경영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체험을 겪는 이유가 지금은 완전하게 뚜렷하지 않지만, **완결성취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능한 미래 운명을 고려할 때, 그런 훈련은 확실히 현명하고 필요하다.

연방우주 체제가,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에게 똑같지는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일반교육을 받지만, 특수 집단과 학급은 특별 지침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특정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6. 하보나 순례자. 영의 발육이 완성되면, 심지어 충만하지 않더라도, 생존하는 필사자는 진화하는 영들의 안식처인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을 위해 준비한다. 네가 이 세상에서는 살과 피로 된 피조물이었으며; 지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모론시아 존재였으며; 연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진화하는 영이었으며; **하보나** 영접 세계에 도착하면, 너의 영적 교육이 실제로 진지하게 시작되며; **낙원**에서 결말에 이른 너의 모습은, 완전하게 된 영(靈)일 것이다.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하보나** 영접 구체로 가는 여행은 항상 홀로 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학급 또는 집단 훈육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세계의 기술 및 경영 훈련을 마쳤다. 이제 너의 **개인 교육**, 즉 너의 영적 개별 훈련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보나** 전역에서, 훈육은 개인적이고 본질적으로 삼중적인데: 지적, 영적, 및 체험적이다.

너의 **하보나** 생애에서 첫 활동은, 길고 안전한 여행에 대해 너의 운송 제2스라빔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초기 **하보나** 활동을 후원하게 될 그 존재들에게 소개된다. 그 다음에 너는 자신의 도착을 등록하고, 자신의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 즉 너의 아들신분 생애를 가능하게 만든 너의 우주 **아버지**께 보낼 감사하고 찬미하는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것이 **하보나** 도착 정규 절차를 완결 지을 것이며; 너는 그 후로 자유로운 관찰을 위한 긴 기간의 휴양(休養)을 허락 받으며, 이것은 오랜 상승 체험에서 사귀었던,

worked on the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so spirit ascenders continue to master new worlds while they practice at giving out to others that which they have imbibed at the experiential founts of wisdom. But going to school as a spirit being in the superuniverse career is very unlike anything that has ever entered the imaginative realms of the material mind of man.

30:4.24 (342.7) Before leaving the superuniverse for Havona, these ascending spirits receive the same thorough course in superuniverse management that they received during their morontia experience in local universe supervision. Before spirit mortals reach Havona, their chief study, but not exclusive occupation, is the mastery of local and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 reason for all of this experience is not now fully apparent, but no doubt such training is wise and necessary in view of their possible future destiny as member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30:4.25 (342.8) The superuniverse regime is not the same for all ascending mortals. They receive the same general education, but special groups and classes are carried through special courses of instruction and are put through specific courses of training.

30:4.26 (343.1) 6. *Havona Pilgrims.* When spirit development is complete, even though not replete, then the surviving mortal prepares for the long flight to Havona, the haven of evolutionary spirits. On earth you were a creature of flesh and blood; through the local universe you were a morontia being; through the superuniverse you were an evolving spirit; with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s of Havona your spiritual education begins in reality and in earnest; your eventual appearance on Paradise will be as a perfected spirit.

30:4.27 (343.2) The journey from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to the Havona receiving spheres is always made alone. From now on no more class or group instruction will be administered. You are through with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training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Now begins your *personal education*, your individual spiritual training. From first to last, throughout all Havona, the instruction is personal and threefold in nature: intellectual, spiritual, and experiential.

30:4.28 (343.3) The first act of your Havona career will be to recognize and thank your transport seconaphim for the long and safe journey. Then you are presented to those beings who will sponsor your early Havona activities. Next you go to register your arrival and prepare your message of thanksgiving and adoration for dispatch to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the universe Father who made possible your sonship career. This concludes the formalities of the Havona arrival; whereupon you are accorded a long period

벗, 동료, 및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너는, 네가 **우버사**를 떠난 이후로, 동료 순례자들 중에서 누가 **하보나**를 향해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송{放送}을 참고할 수 있다.

하보나의 영접 세계에 네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너의 지방우주 본부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고, 너의 스랍 수호자가 어찌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스라빔에게 직접 전해질 것이다.

상승한 필사자는,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직무에서 훈련을 완전히 마쳤으며; 이제 그들은, 완전하게 창조된 구체들과 길고 유익한 접촉을 시작한다. 통합되고 독특하고 뛰어난 이 체험이, 어떤 미래 업무를 위해 얼마나 놀랍게 준비시키는지! 그러나 나는 **하보나**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을 감상하려면, 그리고 그 웅장함을 이해하려면, 네가 이 세계들을 직접 봐야 한다.

7. 낙원 도착자. 거주자 신분으로 **낙원**에 도착하면, 너는 신성과 유한절대성에서 점진적 과정을 시작한다. 네가 **낙원**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의미하고,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될 것을 의미한다. 광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버지**와 융합을 이룬 자들만이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그런 개인만이 완결성취자 서약을 한다. **낙원** 완전성 또는 달성에 속하는 다른 존재들은, 이 완결성 단체에 일시적으로 배속될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고 완성된 노련한 존재로 구성된, 이렇게 모여드는 무리의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사명에 영구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낙원 도착자들에게는 어떤 기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 그들은 1차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일곱 집단과 연합하기 시작한다. 경배 인도자들과 갖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낙원** 졸업생이라고 불리며, 그 다음에는 완결성취자로서 관찰하고 협동하는 봉사애, 광범한 창조물의 끝부분까지 배정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들에서 여러 자격으로 근무하지만, 그들을 위한 특별하거나 정해진 일자리는 아직 없는 듯하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대한 미래의 운명이나 계시되지 않은 운명이 없다면, 상승한 이 존재들의 현재 임무는 전체적으로 충분하고도 영광스럽다. 그들의 현재 운명은, 진화로 상승하는 우주 계획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구체들이 진화하는 미래 시대는, 의심할 여지없이, 인간 생존과 필사자 상승에 대한 **하나님**들의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하나님**들의 지혜와 사랑스런 자비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더욱 찬탄하고 신성하게 밝혀줄 것이다.

of leisure for free observation, and this affords opportunity for looking up your friends, fellows, and associates of the long ascension experience. You may also consult the broadcasts to ascertain who of your fellow pilgrims have departed for Havona since the time of your leaving Uversa.

30:4.29 (343.4) The fact of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s of Havona will be duly transmitted to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and personally conveyed to your seraphic guardian, wherever that seraphim may chance to be.

30:4.30 (343.5) The ascendant mortals have been thoroughly trained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now they begin their long and profitable contact with the created spheres of perfection. What a preparation for some future work is afforded by this combined, unique, and extraordinary experience! But I cannot tell you about Havona; you must see these worlds to appreciate their glory or to understand their grandeur.

30:4.31 (343.6) **7. Paradise Arrivals.** On reaching Paradise with residential status, you begin the progressive course in divinity and absonity. Your residence on Paradise signifies that you have found God, and that you are to b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Of all th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only those who are Father fuse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Only such individuals take the finaliter oath. Other beings of Paradise perfection or attainment may be temporarily attached to this finality corps, but they are not of eternal assignment to the unknown and unrevealed mission of this accumulating host of the evolutionary and perfected veterans of time and space.

30:4.32 (343.7) Paradise arrivals are accorded a period of freedom, after which they begin their associations with the seven groups of the primary supernaphim. They are designated Paradise graduates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course with the conductors of worship and then, as finaliters, are assigned on observational and co-operative service to the ends of the far-flung creation. As yet there seems to be no specific or settled employment for the Mortal Corps of Finaliters, though they serve in many capacities on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30:4.33 (344.1) If there should be no future or unrevealed destiny for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the present assignment of these ascendant beings would be altogether adequate and glorious. Their present destiny wholly justifies the universal plan of evolutionary ascent. But the future ages of the evolution of the spheres of outer space will undoubtedly further elaborate, and with more repleteness divinely illuminate, the wisdom and loving-kindness of the Gods in the execution

본 문서는, 너희에게 계시돼 온 것과 함께,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세계에 관한 지침과 관련해서 너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에 관한 개요를 보여준다. 다른 연방우주들에서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지만, 이 설명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광우주 가운데 일곱째 부분, 즉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운영되는 바와 같이, 필사자를 진급시키는 평범한 계획을 대략 훑어본 것이다.

[**우버사**에서 온,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of their divine plan of human survival and mortal ascension.

^{30:4.34 (344.2)} This narrative, together with what has been revealed to you and with what you may acquire in connection with instruction respecting your own world, presents an outline of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The story varies considerably in the different superuniverses, but this recital affords a glimpse of the average plan of mortal progression as it is operative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in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30:4.35 (344.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from Uversa.]

제31편. 완결성취 단체

⇨ 030

유랜시아 책

032 ⇨

II 부. 지방우주

제31편
완결성취 단체

섹션

소개

1. 하보나 원주민
2. 인력 사자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4. 입양된 스라빔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6.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7. 빛의 희소식
8. 초월자
9. 총괄우주 건축가
10. 궁극의 모형

PAPER 31
THE CORPS OF THE FINALITY

SECTIONS

Introduction

1. The Havona Natives
2. Gravity Messengers
3. Glorified Mortals
4. Adopted Seraphim
5. Glorified Material Sons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7. The Evangels of Light
8. The Transcendentals
9.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10. The Ultimate Adventure

소개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조율사**와 융합된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체에 배정된 다른 집단들도 있다. 1차 완결성취자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 **하보나 원주민.**
2. **인력{引力} 사자.**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4. **입양된 스라빔.**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6.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영화롭게 된 이 여섯 집단의 존재가, 영원한 운명을 가진 이 독특한 기관{機關}을 구성한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 업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는 **낙원**에서 동원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들이 공간의 우주들을

INTRODUCTION

31:0.1 (345.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represents the present known destination of the ascending Adjuster-fused mortals of time. But there are other groups who are also assigned to this corps. The primary finaliter corp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 31:0.2 (345.2) 1. Havona Natives.
- 31:0.3 (345.3) 2. Gravity Messengers.
- 31:0.4 (345.4) 3. Glorified Mortals.
- 31:0.5 (345.5) 4. Adopted Seraphim.
- 31:0.6 (345.6) 5. Glorified Material Sons.
- 31:0.7 (345.7)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31:0.8 (345.8) These six groups of glorified beings compose this unique body of eternal destiny. We think we know their future work, but we are not certain. While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is mobilizing on Paradise, and while they now so

대단히 광범하게 돌보고,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들을 경영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들의 미래 목적지는 외부 공간에 있는, 지금 조직되고 있는 우주들이 될 것이다. 적어도 **우버사**에서는 그렇게 추측한다.

그 단체는 공간 세계들의 운영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길고 다사한 상승 생애 내내 획득된, 교체하는 체함에 보조를 맞춰서 조직돼 있다. 이 단체에 가입된 상승한 피조물 전체가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고양된 이 평등성은 어떤 면으로든 개체성을 폐기시키거나 개인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완결성취자와 대화할 때, 그가 상승한 필사자인지, **하보나** 원주민인지, 입양된 스라빔인지, 중도 피조물인지, 또는 **물질 아들**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다.

현 우주 시대에, 완결성취자들은 시간세계의 우주에서 근무하려고 돌아온다. 그들은 다른 연방 우주들에서 연속으로 수고하도록 배정되고, 다른 여섯 연방창조물 전부에서 근무를 마치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에 결코 배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칠중 개념을 획득할지도 모른다.

필사 완결성취자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원이, **유란시아**에서 끊임없이 근무하고 있다. 우주 봉사에서 그들이 배정되지 않는 범위는 없으며; 그들은 보편적으로, 배정된 의무 봉사와 자유 봉사를 번갈아서, 동일한 기간 활동한다.

우리는 색다른 이 집단의 미래 조직의 본성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완결성취자들은 지금 전적으로 자치 단체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자체의 영구, 정기{定期}, 및 임무배정 지도자와 지휘자를 선택한다. 어떤 외부 영향도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들은 오직 **낙원 삼위일체**에게만 충성을 맹세한다.

완결성취자들은, **낙원**, 연방우주, 지방우주, 및 모든 구획의 수도{首都}에 본부를 둔다. 그들은 진화 창조물에서 분리된 계층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항상 협동한다. 그들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에서 누적되는 시험을 견디고 참된 혼이며—곧 우주의 진화적 소금이며, 영원히 악에 물들 수 없고, 죄에 빠질 염려가 없다.

1. 하보나 원주민

중앙우주의 순례자 훈련 학교에서 선생으로서 봉사하는 **하보나** 원주민 가운데 다수가,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크게 애착심을 갖게 되며,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의 미래 활동과 운명에 더욱 흥미

extensively minister to the universes of space and administer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ir future destination must be the now-organ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At least that is the conjecture of Uversa.

31:0.9 (345.9) The corps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associations of the worlds of space and in keeping with the associative experience acquired throughout the long and eventful ascendant career. All the ascendant creatures admitted to this corps are received in equality, but this exalted equality in no way abrogates individuality or destroys personal identity. We can immediately discern, in communicating with a finaliter, whether he is an ascendant mortal, Havona native, adopted seraphim, midway creature, or Material Son.

31:0.10 (345.10)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finaliters return to serve in the universes of time. They are assigned to labor successively in the different superuniverses and never in their native superuniverses until after they have served in all the other six supercreations. Thus may they acquire the sevenfold concept of the Supreme Being.

31:0.11 (345.11) One or more companies of the mortal finaliters are constantly in service on Urantia. There is no domain of universe service to which they are not assigned; they function universally and with alternating and equal periods of assigned duty and free service.

31:0.12 (345.12) We have no idea as to the nature of the future organization of this extraordinary group, but the finaliters are now wholly a self-governing body. They choose their own permanent, periodic, and assignment leaders and directors. No outside influence can ever be brought to bear upon their policies, and their oath of allegiance is only to the Paradise Trinity.

31:0.13 (346.1) The finaliters maintain their own headquarters on Paradise, in the superuniverses, in the local universes, and on all the divisional capitals. They are a separate order of evolutionary creation. We do not directly manage them or control them, and yet they are absolutely loyal and always co-operative with all our plans. They are indeed the accumulating tried and true souls of time and space — the evolutionary salt of the universe — and they are forever proof against evil and secure against sin.

1. THE HAVONA NATIVES

31:1.1 (346.2) Many of the Havona natives who serve as teachers in the pilgrim-training schools of the central universe become greatly attached to the ascending mortals and still more intrigued with the

를 갖는다. **낙원**에서는 **그랜한다**의 동역자가 관장하는 **하보나** 지원자에 대한 등록부가 그 단체의 경영 본부에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이 대기{待期} 명단에 있는 무수한 **하보나** 원주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접 신성하게 창조된 이 완전한 존재들은,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먼 미래에 더 큰 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고 신성이 충만하게 탄생된 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완결성취자들은 체험적 실존의 두 국면을--곧 완전한 국면과 완전하게 된 국면을-- 모두 포함한다.

하보나 원주민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 단편{斷片}을 중여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진화 존재들과 접촉해서, 어떤 체험적 발전을 성취해야 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오직 **제1 근원 및 중심**의 영과 융합한 그런 존재, 또는 **인력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을 선천적으로 구현하는 자를 영구 회원{會員}으로 삼는다.

중앙우주 거주자는 1,000명당--곧 완결성취자 중대{中隊}마다-- 한 명의 비율로 이 단체에 가입된다. 그 단체는 1,000명의 중대 단위로, 임시 근무를 위해 조직되는데, 이 중대에는 한 명의 **하보나** 원주민, 한 명의 **인력 사자**, 그리고 997명의 상승한 피조물이 있다. 완결성취자는 그렇게 중대로 동원되지만, 완결성취 서약은 개별적으로 집행된다. 이것은 포괄적인 암시와 영원한 취지를 갖는 서약이다. **하보나** 원주민도 똑같은 서약을 하고, 그 단체에 영구히 배속된다.

하보나 신입생은 자신이 배치된 중대를 따라가며; 그 집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도 간다. 그리고 너희는 완결성취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봐야 한다. **완결성취 단체**를 성취할 가능성은, **하보나**에서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이며; 완결성취자가 될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이 겪는 최고 모험 가운데 하나다.

하보나 원주민 역시, **바이스저링톤**에 있는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에, 그리고 **낙원**에 있는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에 동일한 비율로 가입한다. **하보나** 시민은,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에 가입될 가능성과 더불어, 이 세 가지 운명을 자신의 숭고한 생애에서 최고 목표로 간주한다.

2. 인력 사자

인력{引力} 사자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완결성취자들이 지휘한다. 모든 **인력 사자**는 **그랜한다**의 독점 관할권 아래 있고, 오직 1차 **완결성취 단체**에만 배정된다. 그들은 지

future work and destiny of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On Paradise there is maintained, at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corps, a registry for Havona volunteers presided over by the associate of Grandfanda. Today, you will find millions upon millions of Havona natives upon this waiting list. These perfect beings of direct and divine creation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Mortal Corps of Finality, and they will undoubtedly be of even greater service in the far-distant future. They provide the viewpoint of one born in perfection and divine repleteness. The finaliters thus embrace both phases of experiential existence — perfect and perfected.

31:1.2 (346.3) Havona natives must achieve certain experiential developments in liaison with evolutionary beings which will create reception capacity for the bestowal of a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Mortal Finaliter Corps has as permanent members only such beings as have been fused with the spiri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r who, like the Gravity Messengers, innately embody this spirit of God the Father.

31:1.3 (346.4) The inhabitant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received into the corps in the ratio of one in a thousand — a finaliter company. The corps is organized for temporary service in companies of one thousand, the ascendant creatures numbering 997 to one Havona native and one Gravity Messenger. Finaliters are thus mobilized in companies, but the finality oath is administered individually. It is an oath of sweeping implications and eternal import. The Havona native takes the same oath and becomes forever attached to the corps.

31:1.4 (346.5) The Havona recruits follow the company of their assignment; wherever the group goes, they go. And you should see their enthusiasm in the new work of the finaliters. The possibility of attaining the Corps of the Finality is one of the superb thrills of Havona;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finaliter is one of the supreme adventures of these perfect races.

31:1.5 (346.6) The Havona natives are also received, in the same ratio, into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on Vicegerington and into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on Paradise. The Havona citizens regard these three destinies as constituting the supreme goals of their supernal careers, together with their possible admission to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2. GRAVITY MESSENGERS

31:2.1 (346.7) Wherever and whenever Gravity Messengers are functioning, the finaliters are in command. All Gravity Messengers ar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Grandfanda, and they are

금도 완결성취자들에게 해야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며, 영원한 미래에 모든 면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성 피조물 가운데 어떤 다른 집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격화 된 사자 단체를 소유할 수 없다.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에 배속된, 비슷한 유형의 사자 기록원들은 인격화되지 않았으며;유한절대화 돼있다.

인력 사자들은 **디비닝톤**에서 쏟아져 나오며, 변경되고 인격화 된 **조울사**이지만, 우리 **우버사**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사자 가운데 하나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고귀하게 인격있는 존재, 즉 신성하고 지성적이며 감동적으로 이해심 많은 존재임을 알지만, 공간을 횡단하는 시간 초월 기법을 납득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일부 또는 전체 에너지와 회로, 그리고 심지어 인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필사 단체에 속한 완결성취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영 인격체들과 연합해 왔고, 그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종속시켜 왔다. 우리는 **인력 사자**를 감히 인격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실제로 초월 영 존재, 즉 제한이 없고 경계선이 없는 인격체다. **단독 사자**와 비교할 때, 그들은 아주 다른 계층의 인격체에 속한다.

인력 사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완결성취자 중대에 배속될 수 있지만, 그 동료 중에서 한 명의 우두머리 사자만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아무튼 이 우두머리는, 999명의 동료 사자로 구성된 영구 참모진을 임명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층의 예비군에게 보좌관을 숫자에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다.

인력 사자들과,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들은, 서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을 가지며;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많은데:하나는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이 직접 인격화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 즉 영{靈}인 **사 고 조울사**와 융합한 인격이요, 생존하는 불멸의 혼 속에 실존하는 피조물 인격이다.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조울사와 융합된 상승한 필사자들이 1차 **완결성취 단체** 대부분을 구성한다.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스라빔과 함께, 그들은 대개 각 완결성취자 중대마다 990명이다. 필사자가 스라빔보다 훨씬 많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든지 필사자와 천사의 비율은 다르다. **하보나** 원주민,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인력 사자**,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누락된 요원은, 그 단체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1,000명의 완결성취자로 구성된 각 중대에는, 필사자가 아니고 스라빔도 아닌 이 인격체를 위해 꼭 열 자리가 마련돼 있다.

assigned only to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hey are invaluable to the finaliters even now, and they will be all-serviceable in the eternal future. No other group of intelligent creatures possesses such a personalized messenger corps able to transcend time and space. Similar types of messenger-recorders attached to other finaliter corps are not personalized; they are absonitized.

31:22 (347.1) Gravity Messengers hail from Divinington, and they are modified and personalized Adjusters, but no one of our Uversa group will undertake to explain the nature of one of these messengers. We know they are highly personal beings, divine, intelligent, and touchingly understanding, but we do not comprehend their timeless technique of traversing space. They seem to be competent to utilize any and all energies, circuits, and even gravity. Finaliters of the mortal corps cannot defy time and space, but they have associated with them and subject to their command all but infinite spirit personalities who can. We presume to call Gravity Messengers personalities, but in reality they are superspirit beings, unlimited and boundless personalities. They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order of personality as compared with Solitary Messengers.

31:23 (347.2) Gravity Messengers may be attached to a finaliter company in unlimited numbers, but only one messenger, the chief of his fellows, is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This chief however has assigned to him a permanent staff of 999 fellow messengers, and as occasion may require, he may call upon the reserves of the order for assistants in unlimited numbers.

31:24 (347.3) Gravity Messengers and glorified mortal finaliters achieve a touching and profound affection for one another; they have much in common: One is a direct personalization of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other a creature personality existent in the surviving immortal soul fused with a fragment of the same Universal Father, the spirit Thought Adjuster.

3. GLORIFIED MORTALS

31:31 (347.4) Ascendant Adjuster-fused mortals compose the bulk of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ogether with the adopted and glorified seraphim they usually constitute 990 in each finaliter company. The proportion of mortals and angels in any one group varies, though the mortals far outnumber the seraphim. The Havona natives, glorified Material Sons, glorified midway creatures, the Gravity Messengers, and the unknown and missing member make up only one per cent of the corps; each company of one thousand finaliters has places for just ten of these nonmortal and nonseraphic personalities.

우버사에 속한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필사자의 “완결성 운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현재 **낙원**에 거주하고 **빛과 생명의 단체**에서 근무하지만, 그런 엄청난 상승 훈련 과정과 그런 긴 우주 훈련은, 더 큰 책임을 맡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더 고귀한 책임을 지는 근무를 위해서 그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고안됐음이 분명하다.

상승한 이 필사자들이 이미 **낙원**에 도달했고,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됐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지방우주들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연방우주 직무에 대한 경영에서—심지어 이 명백한 운명 앞에서—도움 주도록 돌려보냄 받았음에도, 그들이 오직 여섯째 단계 영으로 기록돼 있다는 의미심장한 사실이 남아 있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의 생애에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단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인지해 왔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1. 필사자가 소구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첫째 계층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대구역으로 전환될 때 둘째 계층으로 진보하고, 연방우주의 중앙 훈련 세계들로 갈 때 셋째 계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부터 알고 있다. 필사자는 **하보나**의 여섯째 궤도에 도달한 후에, 넷째 계층의 영, 즉 졸업생 영이 되며,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때 다섯째 계층의 영이 된다. 그 후에 **필사 완결성취 단체**라는 끝없는 임무배정에 영구히 그들을 소집하기로 선서함에 따라, 영 실존의 여섯째 단계를 달성한다.

우주 봉사의 한 영역에서 우주 봉사의 다른 영역으로, 또는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나아가는 실제 진보에 따라서, 영 분류 또는 명칭이 결정돼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필사 완결성취 단체**를 일곱째 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구체들에서 근무하는 영원한 임무로 그들이 승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지존자 하나님**께 도달함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추측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너희보다 더 알지 못하며; 필사자 생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 **낙원** 운명을 넘지 않는다.

2. 필사 완결성취자들은, “너희는 완전하라”는 오랜 세월의 명령에 충분히 순응해 왔으며; 필사자의 우주 달성 경로를 상승해 왔으며; **하나님**을 발견했고,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그런 존재들은 영 진보의 현재 한계에 도달했지만, 궁극적 영 신분의 **완결성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피조물이 완전하게 되는 현재 한계에 이르렀지만, **피조물 봉사의 완결성취**는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신격** 경배의 충만함을 체험했지만, **체험적 신격** 달성의 **완결성취**는 체험하지

31:3.2 (347.5) We of Uversa do not know the “finality destiny” of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At present they reside on Paradise and temporarily serve in the Corps of Light and Life, but such a tremendous course of ascendant training and such lengthy universe discipline must be designed to qualify them for even greater tests of trust and more sublime services of responsibility.

31:3.3 (347.6) Notwithstanding that these ascendant mortals have attained Paradise, have be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have been sent back in large numbers to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local universes and to assist in the administration of superuniverse affairs — in the face of even this *apparent* destiny, there remains the significant fact that they are of record as only sixth-stage spirits. There undoubtedly remains one more step in the career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We do not know the nature of that step, but we have taken cognizance of, and here call attention to, three facts:

31:3.4 (348.1) 1. We know from the records that mortals are spirits of the first order during their sojourn in the minor sectors, and that they advance to the second order when translated to the major sectors, and to the third when they go forward to the central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Mortals become quartan or graduate spirits after reaching the sixth circle of Havona and become spirits of the fifth order when they find the Universal Father. They subsequently attain the sixth stage of spirit existence upon taking the oath that musters them forever into the eternity assignment of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31:3.5 (348.2) We observe that spirit classification, or designation, has been determined by actual advancement from one realm of universe service to another realm of universe service or from one universe to another universe; and we surmise that the bestowal of seventh-spirit classification upon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will be simultaneous with their advancement to eternal assignment for service on hitherto unrecorded and unrevealed spheres and concomitant with their attainment of God the Supreme. But aside from these bold conjectures, we really know no more about all this than you do; our knowledge of the mortal career does not go beyond present Paradise destiny.

31:3.6 (348.3) 2. The mortal finaliters have fully complied with the injunction of the ages, “Be you perfect”; they have ascended the universal path of mortal attainment; they have found God, and they have been duly induct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Such beings have attained the present limit of spirit progression but not *finality of ultimate spirit status*. They have achieved the present limit of creature perfection but not *finality of creature service*. They have experienced the fullness of

못했다.

3.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영화롭게 된 필사자는, 지성적 존재로서 가능한 가장 충만한 생애를 사는 현실과 철학을, 한걸음 한걸음 체험으로 알아가면서 상승한 존재이며, 게다가 생존하는 이 피조물은 가장 낮은 물질 세계로부터 **낙원**이라는 영적 고지(高地)를 향해서 상승하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과 공간의 보편적 창조물 전체를, 공정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끈기 있게 경영하는, 모든 신성한 원칙의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든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훈련받아 왔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은 우리 견해를 공유할 자격이 있으며, 너희는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신비에 싸인 궁극 운명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추측할 자유가 있다. 완전하게 된 진화 피조물의 현재 임무가, 우주를 이해하고 연방우주를 경영하는, 졸업 이후 과정의 특징을 띠고 있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듯 하며; 우리 모두는 “생존하는 필사자에게 우주 관리 기법을 그토록 철저히 훈련시키기에, **하나님**들이 왜 그토록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4. 입양된 스라빔

필사자들의 신실한 스랍 수호자 가운데 다수는, 자신이 보호하던 인간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허락을 받으며, 이 수호천사 가운데 다수는, 자신의 상대자가 **아버지**와 융합한 후에 영원한 완결성취자 서약을 할 때 함께하고, 필사 동역자의 운명을 영원히 받아들인다. 필사 존재의 상승하는 체험을 겪는 천사들은, 인간 본성의 운명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 **완결성취 단체**에 동일하게 영원히 편입될 수도 있다.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큰 무리의 스라빔이, 필사자가 아닌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에 배속된다.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행성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오래 지체될 때, 지역 체계의 **아담** 후손 시민이 영구 시민권 신분에서 풀려나도록 탄원을 시작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허락되면, 그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우주 수도에서 합류하며, 그때부터 **낙원**을 향해서, 그리고 **완결성취 단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시대에 도달했을 때, **물질 아들들**, 즉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인간으로 변하기로 선택하고, **조을사**를 받으며,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로 인도하

Deity worship but not *finality of experiential Deity attainment*.

31:3.7 (348.4) 3. The glorified mortals of the Paradise Corps of Finality are ascendant beings in possession of experiential knowledge of every step of the actuality and philosophy of the fullest possible life of intelligent existence, while during the ages of this ascent from the lowest material worlds to the spiritual heights of Paradise, these surviving creatures have been trained to the limits of their capacity respecting every detail of every divine principle of the just and efficient, as well as merciful and patient, administration of all the universal creation of time and space.

31:3.8 (348.5) We deem that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share our opinions, and that you are free to conjecture with us respecting the mystery of the ultimate destiny of the Paradise Corps of Finality. It seems evident to us that the present assignments of the perfected evolutionary creatures partake of the nature of postgraduate courses in universe understanding and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and we all ask, “Why should the Gods be so concerned in so thoroughly training surviving mortals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management?”

4. ADOPTED SERAPHIM

31:4.1 (348.6) Many of the faithful seraphic guardians of mortals are permitted to go through the ascendant career with their human wards, and many of these guardian angels, after becoming Father fused, join their subjects in taking the finaliter oath of eternity and forever accept the destiny of their mortal associates. Angels who pass through the ascending experience of mortal beings may share the destiny of human nature; they may equally and eternally be mustered into this Corps of the Finality. Large numbers of the adopted and glorified seraphim are attached to the various nonmortal finaliter corps.

5. GLORIFIED MATERIAL SONS

31:5.1 (349.1) There is provision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ereby the Adamic citizens of the local systems, when long delayed in receiving planetary assignment, may initiate a petition for release from permanent-citizenship status. And if granted, they join the ascending pilgrims on the universe capitals and thence proceed onward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31:5.2 (349.2) When an advanced evolutionary world attains the later eras of the age of light and life, the Material Sons, the Planetary Adam and Eve, may elect to humanize, receive Adjusters, and embark

는 우주 상승의 진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질 아들** 가운데 더러는,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물학적 촉진제로서 사명에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엄밀하게 볼 때 불이행을 범해 왔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의 자연스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는데, **조울사**를 받고, 죽음을 통과하고, 신앙으로 상승 체제를 통해서 진보하며, 그 후에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한다.

이런 **물질 아들**들이, 많은 완결성취자 중대에서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현존은, 그런 집단이 고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며, 늘 그 지도자로 택함 받는다. **에덴**의 쌍이 같은 집단에 배속되면, 그들은 대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함께 활동하도록 허용된다. 그런 상승한 쌍은, 상승한 필사자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한다.

6.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많은 행성의 경우에 중도{中道} 피조물이 많은 숫자로 산출되지만, 그들이 탄생된 세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 후에는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되면, 또는 그 후로 곧, 그들이 영구 시민권 신분에서 해방되고,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과 함께, 모른시아 세계들, 연방우주, 및 **하보나**를 통과한다.

다양한 우주에서 온 중도 피조물은 기원과 본성에서 크게 다르지만, 어떻게든지 모두 **낙원** 완결성취 단계로 가게 돼있다. 2차 중도자는 모두 결국 **조울사**와 융합하고, 필사 단계로 편입된다. 많은 완결성취자 중대가, 영화롭게 된 이 존재 가운데 한 명을 그 집단에 소유하고 있다.

7. 빛의 회소식

현재 각 완결성취자 중대에는, 서약한 신분에서 속하는 999명의 인격체가, 영구 회원으로서 포함돼 있다. 빈 자리는, 어떤 단일 사명이든지 부여된, 배속된 **빛의 회소식**들의 우두머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그 단체 중에서 유일한 임시 회원이다.

어떤 완결성취자 단체의 근무에 배정된 어떤 천상의 인격체든지 **빛의 회소식**이라고 부른다. 이 존재들은 완결성취자 서약을 하지 않으며, 그 단체 조직에 종속되지만, 영구히 배속되지는 않는다. 이 집단은,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낙원 시민**, 또는 그들의 삼자일체된 자손을--곧 일시적인 완결성취자 임무를 실행하기에 필요한 어는 존재든지-- 포함할 수 있다. 그 단체가 영원한 사명에 배속된 이 존재들을 소유하게 돼있는지 아

upon the evolutionary course of universe ascent leading 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Certain of these Material Sons have partially failed or technically defaulted in their mission as biologic accelerators, as Adam did on Urantia; and then are they compelled to take the natural course of the peoples of the realm, receive Adjusters, pass through death, and progress by faith through the ascendant regime, subsequently attaining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31:5.3 (349.3) These Material Sons are not to be found in many finaliter companies. Their presence lends great potential to the possibilities of high service for such a group, and they are invariably chosen as its leaders. If both of the Edenic pair are attached to the same group, they are usually permitted to function jointly, as one personality. Such ascendant pairs are far more successful in the adventure of trinitizing than are the ascendant mortals.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31:6.1 (349.4) On many planets the midway creatures are produced in large numbers, but they seldom tarry on their native world subsequent to its being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n, or soon there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ermanent-citizenship status and start on the ascension to Paradise, passing through the morontia worlds, the superuniverse, and Havona in company with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31:6.2 (349.5) The midway creatures from various universes differ greatly in origin and nature, but they are all destined to one or another of the Paradise finality corps. The secondary midwayers are all eventually Adjuster fused an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Many finaliter companies have one of these glorified beings in their group.

7. THE EVANGELS OF LIGHT

31:7.1 (349.6) At the present time every finaliter company numbers 999 personalities of oath status, permanent members. The vac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hief of attached Evangel of Light assigned on any single mission. But these beings are only transient members of the corps.

31:7.2 (349.7) Any celestial personality assigned to the service of any finaliter corps is denominated an Evangel of Light. These beings do not take the finaliter oath, and though subject to the corps organization they are not of permanent attachment. This group may embrace Solitary Messengers, supernaphim, seconaphim, Paradise Citizens, or their trinitized offspring — any being required in the prosecution of a transient

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임시 소속이 종료되면, 이 **빛의 회소식**들은 자신의 이전{以前} 신분으로 돌아간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가 현재 구성돼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섯 계층의 영구 요원이 있다. 완결성취자는, 짐작하다시피, 미래 동무들의 신분에 대해 많이 추측하지만, 그들 가운데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버사에 속한 우리는, 일곱째 집단의 완결성취자 신분에 관해 종종 추측한다. 우리는 여러 관념을 고려하는데, **낙원**과 **바이스저링톤** 그리고 내부 **하보나** 회로{回路}에서, 삼자일체된 수많은 집단의 어떤 모여드는 단체가 맡을 가능성이 있는 임무를 포함한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들의 봉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예정된 경우에는, **완결성취 단체**가 우주 경영 업무에서, 그들의 보좌관 가운데 다수를 삼자일체시킬 수 있도록 허용될지 모른다고 추측되기까지 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는, 그 단체에 있는 이 빈자리를, 그들이 미래에 근무할 새 우주에서 기원되는 어떤 유형의 존재가 채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더러는 이 자리를, 아직 창조되거나, 결말에 이르거나, 삼자일체되지 않은 어떤 유형의 **낙원** 인격체가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기도 전에, 완결성취자들이 영 달성의 일곱째 단계에 들어가기로 우리 가운데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많다.

8. 초월자

완결성취자로서, 완전하게 된 필사자가 **낙원**에서 겪는 체험 가운데 일부는, 1,000개 이상의 집단에 해당하는 **낙원**의 초월 최고_시민, 즉 유한 절대 속성을 가진, 결말에 이른 존재들의 본성과 기능을 납득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초월인격체들과 연합할 때, 상승한 그 완결성취자들은 수많은 계층의 초월적인 사역자의 유익한 안내로부터 큰 도움을 얻는데, 이 사역자들은 진보된 완결성취자들을 새로운 **낙원** 형제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에 배정된다. **초월자** 계층 전체는, **낙원**의 서부{西部}에, 그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산다.

초월자들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인간의 납득 한계뿐만 아니라, **낙원** 인격체들에 관한 본 계시{啓示}를 통제하는 명령의 조항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 존재들은, **하보나**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와 어느 면에서도 관련되지 않는다. 방대한 무리의 **낙원 초월자**는, **하보나** 또는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직무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데, 총괄우주 직무의 최고경영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finaliter assignment. Whether or not the corps is to have these beings attached to the eternal mission, we do not know. At the conclusion of attachment these Evangelists of Light resume their former status.

31:7.3 (350.1) As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is at present constituted, there are just six classes of permanent members. The finaliters, as might be expected, engage in much specul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ir future comrades, but there is little agreement among them.

31:7.4 (350.2) We of Uversa often conjecture respecting the identity of the seventh group of finaliters. We entertain many ideas, embracing possible assignment of some of the accumulating corps of the numerous trinitized groups on Paradise, Vicegerington, and the inner Havona circuit. It is even conjectured that the Corps of the Finality may be permitted to trinitize many of their assistants in the work of universe administration in the event they are destined to the service of universes now in the making.

31:7.5 (350.3) One of us holds the opinion that this vacant place in the corps will be filled by some type of being of origin in the new universe of their future service; the other inclines to the belief that this place will be occupied by some type of Paradise personality not yet created, eventuated, or trinitized. But we will most likely await the entrance of the finaliters upon their seventh stage of spirit attainment before we really know.

8. THE TRANSCENDENTALS

31:8.1 (350.4) Part of the perfected mortal's experience on Paradise as a finaliter consists in the effort to achieve comprehension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more than one thousand groups of the transcendental supercitizens of Paradise, eventuated beings of absonite attributes. In their association with these superpersonalities, the ascendant finaliters receive great assistance from the helpful guidance of numerous orders of transcendental ministers who are assigned to the task of introducing the evolved finaliters to their new Paradise brethren. The entire order of the Transcendentals live in the west of Paradise in a vast area which they exclusively occupy.

31:8.2 (350.5) In the discussion of Transcendentals we are restricted, not only by the limitations of human comprehension, but also by the terms of the mandate governing these disclosures concerning the personalities of Paradise. These beings are in no way connected with the mortal ascent to Havona. The vast host of the Paradise Transcendental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e affairs of either Havona or the seven superuniverses, being concerned only with the

너희는 피조물이므로 한 **창조주**를 상상할 수 있지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거대하고 다양한 집합체의 지성 존재들이 있음은 거의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어떤 존재도 창조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창조된 적도 없다.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단어-- 곧 독단적이고 의미 없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초월자**가 단순히 **결말에 이른다**고{또는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신격 절대자**가 그들의 기원에 관여했을 수 있고 그들의 운명에 관계될 수 있지만, 독특한 이 존재들은 현재 **신격 절대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궁극자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들의 현재 **낙원** 체류는,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낙원을 달성한 모든 필사자는, **낙원 시민**과 사귀듯이 **초월자**들과 자주 사귀지만, 필사자가 **초월자**와 처음 갖는 중요한 접촉이 어느 중대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때, **초월자**들의 우두머리, 즉 지배하는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우두머리가, 영원한 **삼위일체** 서약을 집행하는 동안, 필사 상승자들은 새로운 완결성취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완결성취자를 받아들이는 동아리에 참여한다.

9. 총괄우주 건축가

총괄우주 건축가들은 **낙원 초월자**들을 다스리는 단체다. 지배하는 이 단체는, 으뜸 정신, 최고의 영, 그리고 숭고한 유한절대자를 포함하는 28,011명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훌륭한 이 집단을 지배하는 관리[官吏], 즉 선임 **으뜸 건축가**는, **신격** 수준 이하의 모든 **낙원** 지성체를 조정하는 우두머리다.

본 문서들을 허락하는 명령에서, 열여섯째 금지조항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총괄우주 건축가**들과 그 동역자들의 실존은 밝힐 수 있겠지만, 그들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을 온전히 밝혀서는 안 된다.” 아무튼, 우리는 이 **으뜸 건축가**들이 일곱 유한절대 수준에서 실존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일곱 집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낙원 수준**. 오직 선임 **건축가**, 즉 처음으로--결말에 이르는 **건축가**만이 이런 가장 높은 유한절대 수준에서 활동한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이 궁극적 인격체는, 영원성이 시작될 때 결말에 이르렀고, 지금은 **낙원** 및 그것과 연합되어 활동하는 21개 세계의 절묘한 조정자로서 작용한다.

super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master universe.

31:8.3 (350.6) You, being a creature, can conceive of a Creator, but you can hardly comprehend that there exists an enormous and diversified aggregation of intelligent beings who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These Transcendentals create no beings, neither were they ever created. In speaking of their origin, in order to avoid using a new term — an arbitrary and meaningless designation — we deem it best to say that Transcendentals simply *eventuate*. The Deity Absolute may well have been concerned in their origin and may be implicated in their destiny, but these unique beings are not now dominated by the Deity Absolute. They are subject to God the Ultimate, and their present Paradise sojourn is in every way Trinity supervised and directed.

31:8.4 (351.1) Although all mortals who attain Paradise frequently fraternize with the Transcendentals as they do with the Paradise Citizens, it develops that man's first serious contact with a Transcendentaler occurs on that eventful occasion when, as a member of a new finaliter group, the mortal ascender stands in the finaliter receiving circle as the Trinity oath of eternity is administered by the chief of Transcendentals, the presiding head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9.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31:9.1 (351.2)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re the governing corps of the Paradise Transcendentals. This governing corps numbers 28,011 personalities possessing master minds, superb spirits, and supernal absonites. The presiding officer of this magnificent group, the senior Master Architect, is the co-ordinating head of all Paradise intelligences below the level of Deity.

31:9.2 (351.3) The sixteenth proscription of the mandate authorizing these narratives says: “If deemed wise, the existen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their associates may be disclosed, but their origin, nature, and destiny may not be fully revealed.” We may, however, inform you that these Master Architects exist in seven levels of the absonite. These seven groups are classified as follows:

31:9.3 (351.4) 1. *The Paradise Level*. Only the senior or first-eventuated Architect functions on this highest level of the absonite. This ultimate personality — neither Creator nor creature — eventuated in the dawn of eternity and now functions as the exquisite co-ordinator of Paradise and its twenty-one worlds of associated activities.

2. **하보나 수준**. 둘째 **건축가**가 결말에 이름으로써, 세 명의 으뜸 계획가와 유한절대 경영자가 산출했으며, 그들은 중앙우주의 완전한 10억 구체를 조화시키기에 항상 몰두해 왔다. **낙원**의 전통은, 이 세 **건축가**가, 결말에 이르기 전의 선임 **건축가**의 조언에 따라서, **하보나** 계획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3. **연방우주 수준**. 셋째 유한절대 수준은 일곱 연방우주의 일곱 **우름 건축가**를 포함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의 집단으로서, **낙원**에 있는 **일곱 으뜸 영**과 함께, 그리고 **무한한 영**의 특별한 일곱 세계에 있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함께, 거의 똑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광우주의 최고조정자다.

4. **1차 공간 수준**. 이 집단은 70명의 **건축가**로 구성되며, 우리는 그들이 현재 일곱 연방우주 가장자리 너머에서 결집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첫 우주를 위한 궁극적 계획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한다.

5. **2차 공간 수준**. 이 다섯째 **건축가** 단체는 490명이고, 우리는 다시, 분명한 에너지 결집을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미 감지한, 외부 공간의 둘째 우주에 그들이 틀림없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6. **3차 공간 수준**. **우름 건축가** 중에서 이 여섯째 집단은 3,430명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외부 공간의 셋째 우주를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참여할지 모른다고 우리는 추론한다.

7. **4차 공간 수준**.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이 단체는, 24,010명의 **우름 건축가**로 구성되며, 앞서 했던 우리 추측이 맞다면, 이 단체는 외부 공간의 계속 커지는 넷째이자 마지막의 우주들과 분명히 관련돼 있을 것이다.

우름 건축가의 이 일곱 집단은, 총 28,011명의 우주 계획가다. **낙원**에는, 영원히 먼 과거에 28,012번째 **우름 건축가**가 결말에 이르도록 시도했다는, 그러나 이 존재가 유한절대화 됨에 실패하고, **우주 절대자**에게 인격을 압류당하는 체험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상승하는 계열의 **우름 건축가**들이 28,011번째 **건축가** 안에서 유한절대성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28,012번째 시도가 **절대자** 현존의 명확한 수준에 이르고자 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28,012번째 결말에 이른 수준에서, 유한절대성의 품질이 **우주적 존재**의 수준과 동등하게 됐고, **절대자**의 가치에 도달했다.

기능상 조직으로 보면, 감독하는 세 **하보나 건축가**는, 혼자인 **낙원 건축가**에게 동역 보좌관으로서 행동한다. 일곱 연방우주 **건축가**들은 **하보나** 감독관들의 협조자로서 활동한다. 1차 외부 공간

31:9.4 (351.5) 2. *The Havona Level.* The second Architect eventuation yielded three master planners and absonite administrators, and they have always been devoted to the co-ordination of the one billion perfect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Paradise tradition asserts that these three Architects, with the counsel of the pre-eventuated senior Architect, contributed to the planning of Havona, but we really do not know.

31:9.5 (351.6) 3. *The Superuniverse Level.* The third absonite level embraces the seven Master Architec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ho now, as a group, spend about equal time in the compan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n Paradise and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n the seven special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the superco-ordinators of the grand universe.

31:9.6 (351.7) 4. *The Primary Space Level.* This group numbers seventy Architects, and we conjecture that they are concerned with the ultimate plans for the first universe of outer space, now mobilizing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31:9.7 (351.8) 5. *The Secondary Space Level.* This fifth corps of Architects numbers 490, and again we conjecture that they must be concerned with the second universe of outer space, where already our physicists have detected definite energy mobilizations.

31:9.8 (352.1) 6. *The Tertiary Space Level.* This sixth group of Master Architects numbers 3,430, and we likewise infer that they may be occupied with the gigantic plans for the third universe of outer space.

31:9.9 (352.2) 7. *The Quartan Space Level.* This, the final and largest corps, consists of 24,010 Master Architects, and if our former conjectures are valid, it must be related to the fourth and last of the ever-increasing-sized universes of outer space.

31:9.10 (352.3) These seven groups of Master Architects total 28,011 universe planners. On Paradise there is a tradition that far back in eternity there was attempted the eventuation of the 28,012th Master Architect, but that this being failed to absonitize, experiencing personality seizure by the Universal Absolute. It is possible that the ascending series of the Master Architects attained the limit of absonity in the 28,011th Architect, and that the 28,012th attempt encountered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presence of the Absolute. In other words, at the 28,012th eventuation level the quality of absonity equaled to the level of the Universal and attained the value of the Absolute.

31:9.11 (352.4) In their functional organization the three supervising Architects of Havona act as associate assistants to the solitary Paradise Architect. The seven Architects of the

층의 우주 계획가 70인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의 일곱 **건축가**를 동료 보좌관으로서 섬기고 있다.

총괄우주 건축가들은, 두 개의 방대한 힘 조직가 계층, 즉 1차로 결말에 이른 자들 및 부(副)조월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집단의 보좌관과도우미를 마음대로 활용한다. 이 **총괄 힘 조직가**들을, 광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력 지휘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완결성취자들과 **낙원 시민**이 삼자일체됨으로 산출한 자손들처럼, 시간세계와 영원한 세계 자녀들이 합동함으로 생산된 모든 존재는, **으뜸 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그러나 현재 조직된 우주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모든 피조물 또는 실재 중에서, **단독 사자** 및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만이, **초월자** 및 **총괄우주 건축가**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든지 유지한다.

으뜸 건축가들은, 지방우주 조직을 위한 자신의 공간 지역들에 대해, **창조주 아들**들의 임무배정의 기술적 승인에 기여한다. **으뜸 건축가**들과 **낙원 창조주 아들**들 사이에는 어떤 매우 긴밀한 연합이 있으며, 이 관계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첫 체험적 **삼위일체** 관계에서 **건축가**들 및 광우주 **최상급 창조주**들의 연합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집단은, 진화하고 체험하는 **지존 하신 분**과 함께, 초월 가치와 총괄우주 의미를 지닌 **궁극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superuniverses act as co-ordinates of the three supervisors of Havona. The seventy planners of the universes of the primary outer space level are at present serving as associate assistants to the seven Architec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31:9.12 (352.5)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have at their disposal numerous groups of assistants and helpers, including two vast orders of force organizers, the primary eventuated and the associate transcendental. These Master Force Organizer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he power directors, who are germane to the grand universe.

31:9.13 (352.6) All beings produced by the union of the children of time and eternity, such as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finaliters and the Paradise Citizens, become wards of the Master Architects. But of all other creatures or entities revealed as functioning in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s, only Solitary Messengers and Inspired Trinity Spirits maintain any organic association with the Transcendentals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31:9.14 (352.7) The Master Architects contribute technical approval of the assignment of the Creator Sons to their space site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There is a very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Master Architects and the Paradise Creator Sons, and while this relationship is unrevealed,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association of the Architects and the grand universe Supreme Creators in the relationship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These two groups, together with the evolving and experiential Supreme Being, constitute the Trinity Ultimate of transcendental values and master universe meanings.

10. 궁극의 모형

선 임 **으뜸 건축가**는, 일곱 **완결성취 단체**를 감독하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
2. **낙원 완결성취자 단체.**
3.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
4.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
5.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
6.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 단체.**

이 운명의 단체들 각각에는 관장하는 우두머

10. THE ULTIMATE ADVENTURE

31:10.1 (352.8) The senior Master Architect has the oversight of the seven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y are:

31:10.2 (352.9) 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31:10.3 (352.10) 2. The Corps of Paradise Finaliters.

31:10.4 (352.11) 3.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31:10.5 (353.1) 4.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31:10.6 (353.2) 5.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31:10.7 (353.3) 6.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31:10.8 (353.4) 7. The Corps of Unrevealed Sons of Destiny.

31:10.9 (353.5) Each of these destiny corps has a

리가 있고, 그 일곱 명이 **낙원**에서 **운명의 최상급 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을 우주에 임무배정하는 이 최고 기관에서 **그랜환다**가 우두머리다.

이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후보자, 인격체, 정신, 영, 유한절대자, 및 체험적 실체들이 실제로 동원됨을 의미하는데, **지존하신 분**의 미래 총괄우주 기능들까지 초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는 아마 **궁극 삼위일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인데, **궁극 삼위일체**는 외부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생기는, 상상할 수 없는 발전에 대비하여 유한계{有限界}와 유한절대계의 세력을 소집하는 일에 몰두한다. 영원성에 가까운 시기에, **낙원 삼위일체**는 그 당시 실존하던 **낙원** 및 **하보나** 인격체들을 비슷하게 동원했고, 그들을 입안된 시간과 공간의 일곱 연방우주 경영자 및 통치자로 임명했으며, 그 후로는 이렇게 인격체들을 동원한 적이 없었다.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는, 미래의 영원한 활동이 있을 외부 우주들에서, 발달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미래 필요성에 대해, 신성이 광우주에 조치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로 이뤄진 미래의 더 거대한 외부 우주들, 즉 새로운 계층의 절묘하고 독특한 존재들로 채워진 새로운 구체들, 그 궁극성에서 탁월한 물질 우주를 감히 예측하고자 하는데, 오직 하나의 중요한 내용만이--즉 상승한 실존의 우주 생애에서 실제 **유한 체험**의 현존만이-- 결핍된 거대한 창조계다. 그런 우주는 엄청난 체험상 장애, 즉: **전능한 지존자**의 진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외부 우주들은 모두 **지존하신 분**의 비길 데 없는 보살핌과 숭고한 전면통제를 누리겠지만, 그가 활기차게 현존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지존하신 신격**의 실체화에 그것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지존자 하나님의 주권이 불충분하게 실체화되기 때문에,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광우주의 진화 인격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모두 그의 진화하는 독특한 체험을 공유한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진화하고, 그는 우리 안에서 진화한다. 영원한 미래에 언젠가, **지존하신 신격**의 진화는 우주의 역사에서 완성된 사실이 되고, 이 놀라운 체험에 참여하는 기회는, 시공우주의 행동하는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그 우주의 청년기 시절에 이 독특한 체험을 획득해 온 자들은, 미래의 전체 영원성 내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시공간 진화에 참여하지 않은 체험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노력으로, 비슷하게 모집하는 다른 여섯 단체와 연합해서 이 외부

presiding head, and the seven constitute the Supreme Council of Destiny on Paradise; and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Grandfanda is the chief of this supreme body of universe assignment for the children of ultimate destiny.

31:10.10 (353.6)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se seven finaliter corps signifies reality mobilization of potentials, personalities, minds, spirits, absonites, and experiential actualities that probably transcend even the future master universe functions of the Supreme Being. These seven finaliter corps probably signify the present activity of the Ultimate Trinity engaged in mustering the forces of the finite and the absonite in preparation for inconceivable developments in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Nothing like this mobilization has taken place since the near times of eternity when the Paradise Trinity similarly mobilized the then existing personalities of Paradise and Havona and commissioned them as administrators and rulers of the projected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seven finaliter corps represent the divinity response of the grand universe to the future needs of the undeveloped potentials in the outer universes of future-eternal activities.

31:10.11 (353.7) We venture the forecast of future and greater outer universes of inhabited worlds, new spheres peopled with new orders of exquisite and unique beings, a material universe sublime in its ultimacy, a vast creation lacking in only one important detail — the presence of actual *finite experience* in the universal life of ascendant existence. Such a universe will come into being under a tremendous experiential handicap: the depriv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Supreme. These outer universes will all enjoy the matchless ministry and supernal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but the very fact of his active presence precludes their participation in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Deity.

31:10.12 (353.8)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evolving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suffer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incomplete actu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but we are all sharing the unique experience of his evolution. We evolve in him and he evolves in us. Sometime in the eternal future the evolution of Supreme Deity will become a completed fact of universe history, an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wonderful experience will have passed from the stage of cosmic action.

31:10.13 (353.9) But those of us who have acquired this unique experience during the youth of the universe will treasure it throughout all future eternity. And many of us speculate that it may be the mission of the gradually accumulating reserves of the ascendant and perfected mortals

우주들을 경영하는 것이, 상승하여 완전하게 된 **완결성취 단체**의 필사자들이 점점 더 누적되는 이 예비군의 사명일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운데 다수가 추측한다.

이 결핍은 어떤 수준의 우주 실존에서든지 불가피하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영적 실존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 우리는 지금 진화하는 우주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상승하는 필사자를 보살피며, 그리하여 비교적 높은 영적 체험이라는 실체의 결핍을 보상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 외부 창조계에 관한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

1. 외부 공간 영역들에서 점차 조직되고 있는 거대하고 새로운 체계의 우주들이 실제로 있다. 인간이 살고 조직화 된 창조계의 현재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먼 곳에서, 새로운 계층의 물리 창조계, 즉 무리 짓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우주 궤도가, 너희의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관측된다. 현재, 이 외부 창조계는 전적으로 물리적이며; 거기에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피조물이 경영하지 않는 듯하다.

2. 여러 시대 동안, 여섯 개의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와 연합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전하게 된 상승한 존재들을 **낙원**에서 동원하는 일이, 설명도 없이 온통 신비스럽게 계속되고 있다.

3. 이런 진행사항과 동시에, **신격의 지존하신 인격자**는 연방창조물의 전능한 주권자로서 힘을 키우고 있다.

피조물, 우주들, 및 **신격**을 포함하는, 이런 삼중적(三重的) 발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롭고 계시되지 않은 어떤 것이 총괄우주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규모로, 물리적 우주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동원되고 조직되며 **지존하신 분**의 인격이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현을,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을 신성한 완전성으로 올려주는 이 엄청난 기원과 관련시키고, 차후에 **낙원**에서 **완결성취 단체**--곧 우주 신비 속에 가려진 이름이자 운명--에 필사자가 동원되는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모여들고 있는 **완결성취 단체**가 외부 공간 우주들에서 미래에 어떤 봉사를 하게 돼있다는 것을, **우버사** 전체가 점점 더 믿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적어도 7만 개의 물질 집합체에 해당하는 무리를 우리는 식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현재 어느 연방 우주보다도 크다.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in association with the other six similarly recruiting corps, to administer these outer universes in an effort to compensate their experiential deficiencies in not having participated in the time-space evolution of the Supreme Being.

31:10.14 (353.10) These deficiencies are inevitable on all levels of universe existence.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we of the higher levels of spiritual existences now come down to administer the evolutionary universes and minister to the ascending mortals, thus endeavoring to atone for their deficiencies in the realities of the higher spiritual experience.

31:10.15 (354.1) But though we really know nothing about th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respecting these outer creations, nevertheless, of three things we are certain:

31:10.16 (354.2) 1. There actually is a vast and new system of universes gradually organizing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New orders of physical creations, enormous and gigantic circles of swarming universes upon universes far out beyond the present bounds of the peopled and organized creations, are actually visible through your telescopes. At present, these outer creations are wholly physical; they are apparently uninhabited and seem to be devoid of creature administration.

31:10.17 (354.3) 2. For ages upon ages there continues the unexplained and wholly mysterious Paradise mobilization of the perfected and ascendant beings of time and space, in association with the six other finaliter corps.

31:10.18 (354.4) 3. Concomitantly with these transactions the Supreme Person of Deity is powerizing as the almighty sovereign of the supercreations.

31:10.19 (354.5) As we view this triune development, embracing creatures, universes, and Deity, can we be criticized for anticipating that something new and unrevealed is approaching culmination in the master universe? Is it not natural that we should associate this agelong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physical universes on such a hitherto unknown scale and the personality emergence of the Supreme Being with this stupendous scheme of upstepping the mortals of time to divine perfection and with their subsequent mobilization on Paradise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 a designation and destiny enshrouded in universe mystery? It is increasingly the belief of all Uversa that the assembling Corps of the Finality are destined to some future service in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where we already are able to identify the clustering of at least seventy thousand aggregations of matter, each of which is greater than any one of the present

진화하는 필사자는 공간의 행성에서 태어나고, 모론시아 세계들을 통과하고, 영 우주들을 상승하고, **하보나** 구체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낙원**에 도달하고, 1차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되며, 거기서 우주 봉사의 다음 임무를 기다린다. 모여들고 있는 여섯 개의 다른 완결성취 단체가 있지만, 최초의 필사 상승자인 **그랜한다**가, 모든 계층의 완결성취자들의 **낙원** 우두머리로서 관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모두 이렇게 외친다: 동물에서 기원된 시간세계의 자녀들, 공간에 있는 물질 아들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런 운명이란 말인가!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한을 준, **신성한 조언자**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가 공동으로 후원했음]

신격의 본질, **낙원**의 실체,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의 조직 및 활동, 광우주의 인격체들, 그리고 진화하는 필사자의 고귀한 운명을 묘사하는 31개의 본 문서는, 서기 1934년에, 높은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입안되고 영어로 기록됐는데, 이 위원회는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스물네 명의 **오르본톤**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명령은, **네바돈** 지방우주의 **노라티아덱** 성좌에 소속된, **사타니아** 체계의 606_번째 행성인 **유란시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superuniverses.

31:10.20 (354.6) Evolutionary mortals are born on the planets of space, pass through the morontia worlds, ascend the spirit universes, traverse the Havona spheres, find God, attain Paradise, and are mustered into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herein to await the next assignment of universe service. There are six other assembling finality corps, but Grandfanda, the first mortal ascender, presides as Paradise chief of all orders of finaliters. And as we view this sublime spectacle, we all exclaim: What a glorious destiny for the animal-origin children of time, the material sons of space!

31:10.21 (354.7) [Jointly sponsored by a Divine Counselor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authorized so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31:10.22 (354.8) These thirty-one papers depicting the nature of Deity, the reality of Paradise,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 high destiny of evolutionary mortals, were sponsored, formulated, and put into English by a high commission consisting of twenty-four Orvonton administrators acting in accordance with a mandate issu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directing that we should do this on Urantia, 606 of Satania, in Norlatiadek of Nebadon, in the year A.D. 1934.

유랜시아 책

II 부. 지방우주

제32편. 지방우주의 진화

⇨ 031

유란시아 책

033 ⇨

II 부. 지방우주

제32편
지방우주의 진화

섹션

소개

1. 우주의 물리적 출현
2. 우주 조직
3. 진화 관념
4. 하나님과 지방우주의 관계
5.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소개

한 지방우주는, **낙원의 미가엘** 계층인, **한 창조주 아들**의 작품이다. 지방우주는 100개의 성좌로 이뤄졌고, 각 성좌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100개의 체계를 포함한다. 각 체계는, 약 1,000개에 달하는 인간거주 구체(球體)를 결국 내포하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우주들은 모두 진화한다. **낙원 미가엘**들의 창조 계획은, 그런 지방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체계의 구체에 거주하는 다양한 피조물의, 육체적, 지적, 및 영적 본성과 수용력이 서서히 진화하고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경로를 따라서 언제나 진행된다.

유란시아는 한 지방우주에 속해 있는데, **네바돈의 하나님** 사람, 즉 **살빙톤의 미가엘인 나사렛 예수**가 그 지방우주의 주권자다. 그리고 이 지방우주에 대한 **미가엘**의 모든 계획은, 그가 일찍이 공간에서 최상의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낙원 삼위일체**로부터 온전한 승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의 창조 활동 영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원래 **총괄우주**의 **낙원 건축가**들이 이 물질 창조계를 입안하고 계획했다.

PAPER 32
THE EVOLUTION OF LOCAL
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Emergence of Universes
2. Universe Organization
3. The Evolutionary Idea
4. God's Relation to a Local Universe
5.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INTRODUCTION

32:0.1 (357.1) A LOCAL universe is the handiwork of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order of Michael. It comprises one hundred constellations, each embracing one hundr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Each system will eventually contain approximately one thousand inhabited spheres.

32:0.2 (357.2) Thes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all evolutionary. The creative plan of the Paradise Michaels always proceeds along the path of gradual evolvement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natures and capacities of the manifold creatures who inhabit the varied orders of spheres comprising such a local universe.

32:0.3 (357.3) Urantia belongs to a local universe whose sovereign is the God-man of Nebadon, Jesus of Nazareth and Michael of Salvington. And all of Michael's plans for this local universe were fully approved by the Paradise Trinity before he ever embarked upon the supreme adventure of space.

32:0.4 (357.4) The Sons of God may choose the realms of their creator activities, but these material creations were originally projected and planned by

the Paradis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1. 우주의 물리적 출현

우주{지방우주}가 생기기 전에, 공간_힘과 원초적 에너지를 조종하는 것은 **낙원 총괄 힘 조직가**들이 할 일이지만, 연방우주 영토들에서, 국지적 인력, 즉 직선 인력에, 출현한 에너지가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관계된 연방우주의 동력 지휘자들이 일하도록 물러난다.

이 동력 지휘자들은 지방우주 창조의 물질 이전{以前} 및 힘 이후{以後} 국면에서 홀로 작용한다. 출현하는 우주를 위한 물질 기초를--곧 실제 항성들과 물질 구체들을--충분히 공급할 만큼, 공간_에너지 활성화를 동력 지휘자들이 이룩하기 전에는, **창조주 아들**이 우주 조직을 개시할 기회가 없다.

지방우주들은 때때로, 가시적{可視的}_물질 내용물이 서로 다르고 물리적 차원이 크게 다르더라도, 에너지 잠재력에서는 모두가 거의 같다. 지방우주의 동력 축적량{蓄積量}과 잠재적_물질 기증품은, **창조주 아들**의 활동, 그리고 그의 창조 동역자가 갖고 있는 타고난 물리적 통제 재능뿐 아니라, 동력 지휘자들 및 그 선조들의 조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방우주의 에너지 축적량은, 그 연방우주의 힘 기본자산의 약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너희 지방우주 **네바돈**의 경우는, 물질화된 질량이 약간 적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네바돈**은 **오르본톤**의 어느 지방 창조계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기본자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네바돈** 우주가 발전해서 팽창할 때, 유일한 물리적 한계는, 통합된 우주 기계작용을 맡은 관련된 동력 및 인격체들의 인력{引力} 통제에 붙잡혀있는, 공간_에너지의 양적{量的} 축적량에 있다.

에너지_물질이 대규모로 물질화되는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낙원 창조주 아들**이 현장에 출현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을 대동한다. **창조주 아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건축양식 구체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구체는, 기획된 지방우주 본부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지방창조가 진행되는 긴 세월 동안, 항성들이 안정을 찾고, 행성들이 형성되어 자체 궤도를 돌게 되는데, 성좌 본부와 체계 수도{首都} 역할을 하는 건축양식 세계들을 창조하는 작업이 그동안 계속된다.

1. PHYSICAL EMERGENCE OF UNIVERSES

32:1.1 (357.5) The preuniverse manipulations of space-force and the primordial energies are the work of the Paradise Master Force Organizers; but in the superuniverse domains, when emergent energy becomes responsiv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ey retire in favor of the power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32:1.2 (357.6) These power directors function alone in the prematerial and postforce phases of a local universe creation. There is no opportunity for a Creator Son to begin universe organization until the power directors have effected the mobilization of the space-energies sufficiently to provide a material foundation — literal suns and material spheres — for the emerging universe.

32:1.3 (357.7) The local universes are all approximately of the same energy potential, though they differ greatly in physical dimensions and may vary in visible-matter content from time to time. The power charge and potential-matter endowment of a local universe are determined by the manipulations of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predecessors as well as by the Creator Son's activities and by the endowment of the inherent physical control possessed by his creative associate.

32:1.4 (358.1) The energy charge of a local universe is approximately one one-hundred-thousandth of the force endowment of its superuniverse. In the case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the mass materialization is a trifle less. Physically speaking, Nebadon possesses all of the physical endowment of energy and matter that may be found in any of the Orvonton local creations. The only physical limitation upon the developmental expansion of the Nebadon universe consists in the quantitative charge of space-energy held captive by the gravity control of the associated powers and personalities of the combined universe mechanism.

32:1.5 (358.2) When energy-matter has attained a certain stage in mass materialization, a Paradise Creator Son appears upon the scene, accompanied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Simultaneously with the arrival of the Creator Son, work is begun upon the architectural sphere which is to become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projected local universe. For long ages such a local creation evolves, suns become stabilized, planets form and swing into their orbits, while the work of creating the architectural worlds which are to serve as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system capitals continues.

2. 우주 조직

우주를 조직하는 동안에는, **제3 근원 및 중심**에서 지원되는 동력 지휘자 및 다른 존재들이 **창조주 아들**들보다 앞선다. 너희의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전에 조직화된 공간 에너지로부터 그렇게 **네바돈** 우주의 인간거주 영역들을 건설했고, 그 후로 계속 그 경영에 정성들여 전념해 오고 있다. 이 신성한 **아들**들은, 선재{先在} 에너지로부터 가시적{可視的} 물질을 형태화 시키고, 살아있는 피조물을 기획하며, **무한한 영**의 우주 현존의 협동으로 다양한 영 인격체 수행원을 창조한다.

우주를 조직하는 물리적 예비 업무에서, **창조주 아들**보다 훨씬 앞서서 일했던 이 동력 지휘자와 에너지 통제관들은, 나중에 이 **우주 아들**과 훌륭하게 연락하면서 근무하는데, 그들이 원래 조직하고 순회시켰던 그 에너지에 대한 연합된 통제에 영원토록 종사한다. **살빙톤**에서는, 이 지방우주를 원래 형태화할 때 너희의 **창조주 아들**과 협동했던, 바로 이 100명의 동력 중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네바돈에서 최초로 완성된 물리적 창조 행위는, 본부 세계의 조직, 즉 그 위성들과 함께 **살빙톤**의 건축양식 구체에서 이뤄졌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처음 이동한 때부터, **살빙톤**의 완성된 구체들에 활기찬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현재 너희 행성 시간으로 10억 년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살빙톤**이 건설된 직후에, 기획된 성좌들의 100개의 본부 세계, 그리고 행성을 통제하고 경영하는, 기획된 지역 체계들의 10,000개 본부 구체 및 그 건축양식 위성{衛星}들을 창조하는 일이 뒤따랐다. 그런 건축양식 세계는, 물리적 인격체와 영적 인격체뿐 아니라, 그 사이에 개재하는 모론시아 단계, 즉 과도기 단계의 존재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네바돈의 본부인 **살빙톤**은, 지방우주의 정확한 에너지_질량{質量}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너희 지방우주는, 비록 어떤 큰 체계가 그 물리적 중심에 실존하더라도, 단일 천문{天文} 체계는 아니다.

살빙톤은 **네바돈**의 **미가엘**의 개인 본부이지만, 그가 항상 거기에 있지는 않다. 너희 지방우주가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조주 아들**이 수도 구체에 고정적으로 현존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조직되던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호 물리적 흡인력{吸引力}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궤도와 체계가 서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물질화됨으로써 그 영역의 인력 안정성이 이뤄지기 전에

2. UNIVERSE ORGANIZATION

32:2.1 (358.3) The Creator Sons are preceded in universe organization by the power directors and other beings originating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From the energies of space, thus previously organized, Michael, your Creator Son, established the inhabited realms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ever since has been painstakingly devoted to their administration. From pre-existent energy these divine Sons materialize visible matter, project living creatures,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create a diverse retinue of spirit personalities.

32:2.2 (358.4) These power directors and energy controllers who long preceded the Creator Son in the preliminary physical work of universe organization later serve in magnificent liaison with this Universe Son, forever remaining in associated control of those energies which they originally organized and circuitized. On Salvington there now function the same one hundred power centers who co-operated with your Creator Son in the original formation of this local universe.

32:2.3 (358.5) The first completed act of physical creation in Nebadon consist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 the architectural sphere of Salvington, with its satellites. From the time of the initial moves of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to the arrival of the living staff on the completed spheres of Salvington, there intervened a little over one billion years of your present planetary time. The construction of Salvington was immediately followed by the creation of the one hundred headquarters worlds of the projected constellations and the ten thousand headquarters spheres of the projected local systems of planetary control and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their architectural satellites. Such architectural worlds are designed to accommodate both physical and spiritual personalities as well as the intervening morontia or transition stages of being.

32:2.4 (359.1)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is situated at the exact energy-mass center of the local universe. But your local universe is not a single astronomic system, though a large system does exist at its physical center.

32:2.5 (359.2) Salvington is the personal headquarters of Michael of Nebadon, but he will not always be found there. While the smooth functioning of your local universe no longer requires the fixed presence of the Creator Son at the capital sphere, this was not true of the earlier epochs of physical organization. A Creator Son is unable to leave his headquarters world until such a time as gravity stabilization of the realm has been

는,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본부 세계를 떠날 수 없다.

마침내, 한 우주의 물리적 계획이 완성됐고, **창조주 아들**이 **창조적 영**과 연합하여 생명체 창조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무한한 영**의 이 대표자는 독특한 창조 인격체로서 우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 초기 창조 행위가 공식화 되고 시행됐을 때, **빛나는 새벽별**이 나타났는데, 그는 신성의 정체성 및 이상{理想}으로 이뤄진 이 최초 창조 개념의 의인화{擬人化}된 존재다. 이 존재는 지방우주의 최고 행정관인데, **창조주 아들**의 개인 동역자이며, 신성의 속성에서는 뚜렷이 제한돼 있지만, 모든 성품 면에서는 그를 닮았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 아들**의 믿을만한 도우미와 행정관 우두머리가 준비됐으므로, 거대하고 훌륭한 행렬로, 다양한 피조물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 지방우주의 아들과 딸들이 계속 출현하고, 그 후로 곧 그런 창조물의 정부가 마련되는데, 지방우주의 최고 협의회로부터 성좌 아버지들과 지역 체계 주권자들에 이르기까지 확장됐으며--지역 체계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로 구성된 다양한 필사자 인종의 고향이 되도록, 그 후에 고안된 세계들의 집합체{集合體}이며; 이 세계들을 각각 한 **행성 왕자**가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우주가 그토록 철저히 조직화 되고 충분히 배속되고 나면, 자신들의 신성한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창조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창조주 아들**이 비로소 실행한다.

행성 거주자들의 조직은 **네바돈**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우주는 정말로 **오르본톤**의 별과 행성이 있는 영역에서 어린 성단{星團}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등록부에 의하면, **네바돈**에는 3,840,101개의 인간거주 행성이 있었으며, 너희 세계가 속한 지역 체계인 **사타니아**는, 다른 체계들을 제법 대표할 만하다.

사타니아는 균일한 물리 체계, 즉 단일 천문 단위 또는 조직체가 아니다.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5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리 체계에 위치해 있다. 다섯 개만이 두 개 보다 많은 인간거주 세계를 가졌고, 이것들 중에서 한 개만이 네 개의 인간거주 행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편 두 개의 인간거주 세계를 갖는 것이 46개 있다.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사타니아** 체계는, 일곱째 연방우주의 물리적 중심지, 즉 천문 중심지로서 작용하는 거대한 항성 집단과 **우버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타니아** 본부인 **예루셈**으로부터, **은하수**의 조밀한 직경{直徑} 안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물리적 중앙까지는, 20만 광년이 넘는다. **사타니아**는 지방우

effected through the materialization of sufficient energy to enable the various circuits and systems to counterbalance one another by mutual material attraction.

32:2.6 (359.3) Presently, the physical plan of a universe is completed, and the Creator Son, in association with the Creative Spirit, projects his plan of life creation; whereupon does this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begin her universe function as a distinct creative personality. When this first creative act is formulated and executed, there springs into being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personification of this initial creative concept of identity and ideal of divinity. This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the personal associate of the Creator Son, one like him in all aspects of character, though markedly limited in the attributes of divinity.

32:2.7 (359.4) And now that the right-hand helper and chief executive of the Creator Son has been provided, there ensues the bringing into existence of a vast and wonderful array of diverse creatures.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local universe are forthcoming, and soon thereafter the government of such a creation is provided, extending from the supreme councils of the universe to the fathers of the constellations and the sovereigns of the local systems — the aggregations of those worlds which are designed subsequently to become the homes of the varied mortal races of will creatures; and each of these worlds will be presided over by a Planetary Prince.

32:2.8 (359.5) And then, when such a universe has been so completely organized and so repletely manned, does the Creator Son enter into the Father's proposal to create mortal man in their divine image.

32:2.9 (359.6) The organization of planetary abodes is still progressing in Nebadon, for this universe is, indeed, a young cluster in the starry and planetary realms of Orvonton. At the last registry there were 3,840,101 inhabited planets in Nebadon, and Satania, the local system of your world, is fairly typical of other systems.

32:2.10 (359.7) Satania is not a uniform physical system, a single astronomic unit or organization. Its 619 inhabited worlds are located in over five hundred different physical systems. Only five have more than two inhabited worlds, and of these only one has four peopled planets, while there are forty-six having two inhabited worlds.

32:2.11 (359.8) The Satania system of inhabited worlds is far removed from Uversa and that great sun cluster which functions as the physical or astronomic center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From Jerusem, the headquarters of Satania, it is over two hundred thousand light-years to the physical center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주의 주변지역에 있고, **네바돈**은 현재 **오르본톤** 가장자리 쪽으로 상당히 바깥에 있다. 인간거주 세계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체계에서 연방우주 중앙까지는 25만 광년보다 약간 가깝다.

네바돈 우주는 지금 **오르본톤** 연방우주 회로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회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주는: **아발론**, **헨셀론**, **산셀론**, **포르탈론**, **올버링**, **화노빙**, **알보링** 등이다.

그러나 한 지방우주의 진화는 긴 이야기에 해당된다. 연방우주를 다루는 문서들이 이 주제를 소개할 것이며, 지역 창조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그것을 계속하고, 앞으로 이어질, **유란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문서들이 그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한때 사람의 삶, 즉 인간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너희의 진화 세계에 살았던 그 생애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숙독함으로써만, 너희는 그런 지방우주 창조에 속하는 필사자의 운명을 적절히 납득할 수 있다.

3. 진화 관념

완벽하게 안정된 유일한 창조물은 중앙우주 **하보나**인데,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사고{思考}와 **영원한 아들**의 말씀으로 직접 만들어졌다. **하보나**는 실존적이고 완전하며 충만한 우주인데, 만유의 중심인 영원한 **신격**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 창조계는 유한하고 진화하며 시종일관 진보한다.

시간과 공간의 물리 체계들은 모두 진화로 기원된다. 이 체계들은, 그 연방우주의 안정된 회로속으로 회전해 들어가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우주 역시, 그 물리적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이 완결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의 영적{靈的} 상태가 영구히 정착되고 안정되기 전에는, 빛과 생명에 정착되지 못한다.

중앙우주를 제외하고, 완전성은 점진적으로 달성된다. 우리는 중앙 창조물 안에 완전성의 원형{原型}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영역은, 특유의 그 세계 또는 우주의 진보를 위해 확립된 방법으로 그 완전성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들이 각자의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길들이고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은, 거의 무한하게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신격 현존을 제외하고, 어느 지방우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원형{原型} 창조물인 중

far, far away in the dense diameter of the Milky Way. Satania is on the periphery of the local universe, and Nebadon is now well out towards the edge of Orvonton. From the outermost system of inhabited worlds to the center of the superuniverse is a trifle less than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light-years.

32:2.12 (360.1) The universe of Nebadon now swings far to the south and east in the superuniverse circuit of Orvonton. The nearest neighboring universes are: Avalon, Henselon, Sanselon, Portalon, Wolvering, Fanoving, and Alving.

32:2.13 (360.2) But the evolution of a local universe is a long narrative. Papers dealing with the superuniverse introduce this subject, those of this section, treating of the local creations, continue it, while those to follow, touching upon the history and destiny of Urantia, complete the story. But you can adequately comprehend the destiny of the mortals of such a local creation only by a perusal of the narratives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your Creator Son as he once lived the life of ma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your own evolutionary world.

3. THE EVOLUTIONARY IDEA

32:3.1 (360.3) The only creation that is perfectly settled is Havona, the central universe, which was made directly by th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word of the Eternal Son. Havona is an existential, perfect, and replete universe, surrounding the home of the eternal Deities,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creatio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finite, evolutionary, and consistently progressive.

32:3.2 (360.4) The physical systems of time and space are all evolutionary in origin. They are not even physically stabilized until they are swung into the settled circuits of their superuniverses. Neither is a local universe settled in light and life until its physical possibilities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exhausted, and until the spiritual status of all its inhabited worlds has been forever settled and stabilized.

32:3.3 (360.5) Except in the central universe, perfection is a progressive attainment. In the central creation we have a pattern of perfection, but all other realms must attain that perfection by the methods established for the advancement of those particular worlds or universes. And an almost infinite variety characterizes the plans of the Creator Sons for organizing, evolving, disciplining, and settling their respective local universes.

32:3.4 (360.6) With the exception of the deity presence of the Father, every local universe is, in a certain sense, a du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양 창조물의 경영 조직체를 복제한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비록 거주{居住} 우주에 몸소 현존하시더라도, 글자 그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필사자의 혼과 함께 거주하듯이, 중앙우주에서 생겨나는 존재들의 정신에 그렇게 거주하지는 않는다. 광범한 창조의 영적{靈的} 직무에 대한 조절과 규제에는 온전히_지혜로운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우주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친히 현존{現存}하지만, 완전한 그 창조물에서 사는 자녀들의 정신에 계시지는 않으며;**아버지**는 공간의 우주들에 몸소 계시지 않고, 그의 **주권자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변하며, 한편 **아버지**는 필사자 자녀의 정신 속에 친밀하게 현존하시는데, 의지를 지닌 이 피조물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비 관찰자**라는 인격이전{人格以前} 현존이, 영적으로 **아버지**를 대표한다.

지방우주 본부에는, **만유의 아버지**가 친히 현존하시지 않지만, 완전히_독립된 권세와 경영 자치권{自治權}을 대표하는, 창조자 및 창조 인격체들 전부가 거주한다. **만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중앙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부류의 지성적 존재들 중에서, 모든 존재에 관한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지방우주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만유의 아버지**가 지방우주에 몸소 현존하시지 않더라도, 그 **창조주 아들**이 몸소 **아버지**를 대변하는데, 그 **창조주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최상급 통치자가 된다.

우리가 생명의 등급에서 멀리 내려갈수록,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신앙의 눈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낮은 피조물은--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고등 인격체들도-- **창조주 아들** 안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를 상상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완전히 발달하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으로 고양{高揚}되는 시기까지, 그들은 진보에 점점 지치고, 영적 의구심을 품으며, 혼돈에 빠지고, 그리하여 자신의 시대와 우주에서, 점진적인 영적 목표로부터 스스로 벗어난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보는 역량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다. **아버지**에게 도달하기까지 오랫동안 투쟁하는 내내, 내재된 조건들이 그런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기 동안, 피조물에게 가장 분명한 안전장치는, **아버지**의 현존이 **아들** 안에 있다는 진리_사실을 끈기 있게 붙잡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다. **창조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그 말은 사실이다.

주어진 어느 우주의 인격체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격**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만 안정되고 신뢰할 만하다. 피조물의 기원이 원래의 신성한 **근원**들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하든지 또는 **무한한 영**에 소속된 사역{事役}에 참여하는 피조물과 관계하든지 상관없이, 부조화와 혼돈 그리고 때로는 반역의

organization of the central or pattern creation.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personally present in the residential universe, he does not indwell the minds of the beings originating in that universe as he does literally dwell with the souls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There seems to be an all-wise compensation in the adjustment and regulation of the spiritual affairs of the far-flung creation. In the central universe the Father is personally present as such but absent in the minds of the children of that perfect creation; in the universes of space the Father is absent in person, being represented by his Sovereign Sons, while he is intimately present in the minds of his mortal children, being spiritually represented by the prepersonal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s that reside in the minds of these will creatures.

32:3.5 (360.7) On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there reside all those creator and creative personalities who represent self-contained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autonomy except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local universe there are to be found something of everyone and someone of almost every class of intelligent beings existing in the central universe except the Universal Father.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a local universe, he is personally represented by its Creator Son, sometime vicegerent of God and subsequently supreme and sovereign ruler in his own right.

32:3.6 (361.1) The farther down the scale of life we go,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locate, with the eye of faith, the invisible Father. The lower creatures — and sometimes even the higher personalities — find it difficult always to envisage the Universal Father in his Creator Sons. And so, pending the time of their spiritual exaltation, when perfection of development will enable them to see God in person, they grow weary in progression, entertain spiritual doubts, stumble into confusion, and thus isolate themselves from the progressive spiritual aims of their time and universe. In this way they lose the ability to see the Father when beholding the Creator Son. The surest safeguard for the creature throughout the long struggle to attain the Father, during this time when inherent conditions make such attainment impossible, is tenaciously to hold on to the truth-fact of the Father's presence in his Sons. Literally and figuratively, spiritually and personally, the Father and the Sons are one. It is a fact: He who has seen a Creator Son has seen the Father.

32:3.7 (361.2) The personalities of a given universe are settled and dependable, at the start, only in accordance with their degree of kinship to Deity. When creature origin departs sufficiently far from the original and divine Sources, whether we are dealing with the Sons of God or the creatures of ministry belonging to the Infinite Spirit, there is an

가능성이--즉 죄를 범할 가능성이--증가한다.

신격에서 기원된 완전한 존재들 외에, 연방우주에서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은 진화하는 본성을 갖는데, 낮은 지위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실제로는 안쪽으로 늘 올라간다. 심지어 고귀하게 영적인 인격체들도, 생애에서 생애로, 그리고 구체에서 구체로, 점진적인 전환으로 생애 계단을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신비 관찰자**를 받아들이는 자의 경우에, 그들이 영적으로 상승하고 우주에서 도달하는 높이에는 정말로 어떤 한계도 없다.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마침내 완비됨을 성취했을 때, 그 완비됨은 전적으로 획득한 것이고 인격의 진정한 소유물이다. 은혜의 요소가 아낌없이 혼합되지만, 그럼에도 피조물이 달성한 것은, 개인이 노력하고 실제로 살아서 얻은 결과이며, 기존 환경에 인격이 반응한 결과다.

동물이 진화로 기원됐다는 사실은 우주의 견지에서 어떤 인격체에게도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유한하고 지성적인, 의지를 지닌 두 가지 기본 유형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완전성과 영원성이 절정에 도달할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즐겁게 인생의 사다리를 차례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더 큰 명예가 있으며, 영광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각 인생 국면마다 실제 지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적 체험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창조주**들의 지혜가 나타난다. 모든 필사자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 즉 자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에게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내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모험과 훈련이라는 훌륭한 체험을 그들이 빼앗길 것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실존의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자들만이 이 체험을 얻을 수 있다.

하보나 주위를 도는 여러 우주에 완전한 피조물이 제공되는데, 생명의 진화 단계를 올라가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원형{原型} 교사 안내자들이 필요로 하는 숫자를 충족시킬 정도로만 제공된다. 진화하는 인격체 유형의 체험적 본성은, **낙원 하보나** 피조물의 항상 완전한 본성에 자연스러운,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보완물이다. 실제로는, 완전한 피조물과 완전하게 된 피조물 둘 다, 유한한 전체성을 고려할 때 미완성이다. 그러나 진화하는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으로 완전하게 된 완결성취자들과, **낙원 하보나** 체계의 실존적으로 완전한 피조물이 상호 보완을 위해 연합하는 동안, 두 유형은 선천적 한계로부터 해방되며, 따라서 피조물 상태의 궁극성이라는 숭고한 절정에 도달하기를 공동으로 시도할 수 있다.

피조물의 이런 진행사항들은 **칠중 신격** 안에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disharmony, confusion, and sometimes rebellion — sin.

32:3.8 (361.3) Excepting perfect beings of Deity origin, all will creatures in the superuniverses are of evolutionary nature, beginning in lowly estate and climbing ever upward, in reality inward. Even highly spiritual personalities continue to ascend the scale of life by progressive translations from life to life and from sphere to sphere. And in the case of those who entertain the Mystery Monitors, there is indeed no limit to the possible heights of their spiritual ascent and universe attainment.

32:3.9 (361.4) The perfection of the creatures of time, when finally achieved, is wholly an acquirement, a bona fide personality possession. While the elements of grace are freely admixed, nevertheless, the creature attainments are the result of individual effort and actual living, personality reaction to the existing environment.

32:3.10 (361.5) The fact of animal evolutionary origin does not attach stigma to any personality in the sight of the universe as that is the exclusive method of producing one of the two basic types of finite intelligent will creatures. When the heights of perfection and eternity are attained, all the more honor to those who began at the bottom and joyfully climbed the ladder of life, round by round, and who, when they do reach the heights of glory, will have gained a personal experience which embodies an actual knowledge of every phase of life from the bottom to the top.

32:3.11 (361.6) In all this is shown the wisdom of the Creators. It would be just as easy for the Universal Father to make all mortals perfect beings, to impart perfection by his divine word. But that would deprive them of the wonderful experience of the adventure and training associated with the long and gradual inward climb, an experience to be had only by those who are so fortunate as to begin at the very bottom of living existence.

32:3.12 (362.1) In the universes encircling Havona there are provided only a sufficient number of perfect creatures to meet the need for pattern teacher guides for those who are ascending the evolutionary scale of life. The experiential nature of the evolutionary type of personality is the natural cosmic complement of the ever-perfect natures of the Paradise-Havona creatures. In reality, both perfect and perfected creatures are incomplete as regards finite totality. But in the complemental association of the existentially perfect creature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with the experientially perfected finalizers ascending from the evolutionary universes, both types find release from inherent limitations and thus may conjointly attempt to reach the sublime heights of the ultimate of creature status.

32:3.13 (362.2) These creature transactions are the

서 작용과 반작용이 우주에 미친 영향인데, **칠중 신격** 안에서 **낙원 삼위일체**의 영원한 신성{神性}은, 동력을 실현하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신격**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시공간 우주의 **최상급 창조주**들의 진화하는 신성과 결합된다.

신성하게 완전한 피조물과, 완전하게 된 진화 피조물은, 신성 잠재력의 정도에서 동일하지만, 그 종류는 다르다. 최상의 봉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상대방에게 의존해야 한다. 진화하는 연방우주는, 상승하는 시민에게 최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보나**에 의존하지만, 완전한 중앙우주는, 하강하는 주민의 완전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돼가는 연방우주들이 그렇게 실존할 필요가 있다.

유한한 실체의 두 가지 주요 형태화, 즉 타교난 완비됨과 진화로 완비됨은, 인격체든지 우주든지, 대등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융화된다. 역할, 봉사, 및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각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4. 하나님과 지방우주의 관계

만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능력을 다른 존재들에게 그토록 많이 위임해 오셨다고 해서, 동역관계의 **신격** 일원으로서 침묵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격 분야와 **조물사** 증여를 제외하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 달성에서, **신격** 협조자들과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피조 지성체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부분을 수행토록 허락하면서, **낙원 신격**들로서는 최소한으로 활동하시는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동격 동역자 또는 하위 동역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조하는 세 분 중에서 침묵하는 일원이시다.

하나님은 각 지성체 피조물마다 역할과 체험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주의 운명 또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복지를 고려하면서, 어떤 특정한 우주 상황 또는 창조적 사건과 자신 사이에 선천적으로 개재하는 피조물 무리와 **창조주** 인격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활동을 자제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물러나 계심에도, 즉 무한한 협조를 이렇게 표현함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진 이 대리자 및 인격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실제로, 엄밀하게, 몸소 참여하신다. **아버지**는 광범한 모든 창조물의 복지를 위해, 이 모든 경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일하신다.

지방우주의 방침, 운영, 및 경영을 고려할 때,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호관계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기원된 인격체의 집단 연합

universe repercussions of actions and reactions within the Sevenfold Deity, wherein the eternal divinity of the Paradise Trinity is conjoined with the evolving divinity of the Supreme Creators of the time-space universes in, by, and through the power-actualiz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32:3.14 (362.3) The divinely perfect creature and the evolutionary perfected creature are equal in degree of divinity potential, but they differ in kind. Each must depend on the other to attain supremacy of service.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depend on perfect Havona to provide the final training for their ascending citizens, but so does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require the existence of the perfecting superuniverses to provide for the full development of its descending inhabitants.

32:3.15 (362.4) The two prime manifestations of finite reality, innate perfection and evolved perfection, be they personalities or universes, are co-ordinate, dependent, and integrated. Each requires the other to achieve completion of function, service, and destiny.

4. GOD'S RELATION TO A LOCAL UNIVERSE

32:4.1 (362.5) Do not entertain the idea that, since the Universal Father has delegated so much of himself and his power to others, he is a silent or inactive member of the Deity partnership. Aside from personality domains and Adjuster bestowal, he is apparently the least active of the Paradise Deities in that he allows his Deity co-ordinates, his Sons, and numerous created intelligences to perform so much in the carrying out of his eternal purpose. He is the silent member of the creative trio only in that he never does aught which any of his co-ordinate or subordinate associates can do.

32:4.2 (362.6) God has full understanding of the need of every intelligent creature for function and experience, and therefore, in every situation, be it concerned with the destiny of a universe or the welfare of the humblest of his creatures, God retires from activity in favor of the galaxy of creature and Creator personalities who inherently intervene between himself and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or creative event. But notwithstanding this retirement, this exhibition of infinite co-ordination, there is on God's part an actual, literal, and personal participation in these events by and through these ordained agencies and personalities. The Father is working in and through all these channels for the welfare of all his far-flung creation.

32:4.3 (363.1) As regards the policies, conduct, and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the Universal Father acts in the person of his Creator Son. In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Sons of God, in the

체들에서, 또는 인간들 같은 기타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사이의 관계에서--그런 연합체들에 관해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의 법, 즉 **성좌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 왕자들**의 통치가--곧 지방우주를 위해 정해진 방침과 과정이-- 항상 우선한다. 권세는 분할되지 않으며; 신성한 능력 또는 목적이 상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격**들은 완전하고 영원하게 일치하신다.

윤리적 관계들, 즉 어느 피조물 계열과 다른 어느 피조물 계층의 관계, 또는 주어진 어느 집단 내에서 둘 이상의 개체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서, **창조주 아들**이 최상으로 다스리지만; 그런 계획이, 전체 창조계 전역에서 아무 **개별** 피조물에든지, 그 개체의 현재 상태 또는 미래 예상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무한한 목적에 관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방법으로 개입하면 안 되고, 신성한 정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지를 지닌 필사 피조물 안에서 **아버지**는, 내주하는 **조율사**, 즉 자신의 인격이전 영 단편{短篇}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아버지**는 또한 의지를 지닌 그런 필사 피조물 인격의 근원이기도 하다.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한 이 **사고 조율사**들은 비교적 격리돼 있으며; 인간 정신에 내주하지만, 지방 창조계의 윤리적 직무와는 확실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스랍의 봉사뿐 아니라, 체계, 성좌, 또는 지방우주의 경영과,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 아들**의 통치와 직접 조화되지 않는데, **창조주 아들**의 뜻이 그의 우주에서 최고의 법이다.

내주하는 **조율사**는, 사실상 무한한 창조로 말미암는 피조물과 접촉하는, 독립돼 있지만 통합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다. 필사적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현존을 그렇게 나타내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한 계시{啓示}는 신{神}으로서 가능하지 않다.

관할하는 우주에 관한 상세하고 완성된 지식을 **아들**들이 어떻게 향유{享有}하는지, 그 절차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온갖 우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그토록 충분하게 정통하고 친히 정통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최소한,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거대한 창조물에 속한 존재들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실 수 있는 수단을 인식할 수는 있다. **아버지**는 전체 창조에서 모든 우주의 모든 체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생각과 행동 전체를, 인격 회로를 통해서 인지하신다--곧 친히 아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와

group associations of the personalities of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y other creatures, such as human beings — as concerns such associations the Universal Father never intervenes. The law of the Creator Son, the rule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 the ordained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at universe — always prevail. There is no division of authority; never is there a cross working of divine power and purpose. The Deities are in perfect and eternal unanimity.

32.4.4 (363.2) The Creator Son rules supreme in all matters of ethical associations, the relations of any division of creatures to any other class of creatures or of two or more individuals within any given group; but such a plan does not mean that the Universal Father may not in his own way intervene and do aught that pleases the divine mind with any *individual creature* throughout all creation, as pertains to that individual's present status or future prospects and as concerns the Father's eternal plan and infinite purpose.

32.4.5 (363.3) In the mortal will creatures the Father is actually present in the indwelling Adjuster, a fragment of his prepersonal spirit; and the Father is also the source of the personality of such a mortal will creature.

32.4.6 (363.4) These Thought Adjusters, the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comparatively isolated; they indwell human minds but have no discernible connection with the ethical affairs of a local creation. They are not directly coordinated with the seraphic service nor with the administration of systems, constellations, or a local universe, not even with the rule of a Creator Son, whose will is the supreme law of his universe.

32.4.7 (363.5) The indwelling Adjusters are one of God's separate but unified modes of contact with the creatures of his all but infinite creation. Thus does he who is invisible to mortal man manifest his presence, and could he do so, he would show himself to us in still other ways, but such further revelation is not divinely possible.

32.4.8 (363.6) We can see and understand the mechanism whereby the Sons enjoy intimate and complete knowledge regarding the universes of their jurisdiction; but we cannot fully comprehend the methods whereby God is so fully and personally conversant with the detail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lthough we at least can recognize the avenue whereby the Universal Father can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and manifest his presence to, the beings of his immense creation.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the Father is cognizant — has personal

교류하시는 이 기법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主)**께서 자기 자녀를 아신다”는 확신과, “그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주목하신다”는 우리 각자의 확신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너희의 우주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 속에, **만유의 아버지**가 현존하시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중앙 거주지에 있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필사 정신 깊은 곳에서 살고 일하며 기다리는 신성한 **조율사**를 통해서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인격체가 아니며; **아버지**는 자신을 창조물과 피조물에게 아무 값없이 분배하신다. 그는 **신격**들 안에서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안에서도 살고 행동하시는데,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다. **만유의 아버지**는, 다른 존재가 실행하기에 가능한 모든 역할을 정말로 벗어 버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우주 본부에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창조주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사적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우리는 그렇게 **만유의 아버지**의 이상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열매 맺는 과정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보편적 증여에서, 그의 신성한 본성의 광대함과 관대함, 둘 다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로부터 무언가를 스스로 남겨놓으셨더라도, 그 나머지 중에서, 그는 아낌없이 관대하게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게 **사고 조율사**를 증여하고 계시며, 이 **사고 조율사**는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 후보자들에 아주 끈기 있게 내주하는, 한때의 **신비 관찰자**다.

이들테면, **만유의 아버지**는, 모든 창조가 인격 소유와 잠재적인 영적 달성에서 풍성하게 되도록, 자신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사랑하는 것들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영광만을 자신에게 남겨놓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벗어버리셨다.

5.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공간을 지나가는 우주들의 행진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런 목적이 있다. 너희 모든 필사자의 투쟁은 헛되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광대한 계획, 즉 거대한 계획사업의 일부분이며, 어떤 한 시대든지 그리고 어떤 한 생애 동안이든지, 그 이행업무의 매우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들이 감독하고 열심히 작업하시는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신기하고 보편적인 전체 장치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한 사고(思考)와 영원한 목적의 박자로 이뤄진 음악에 맞춰 공간을

knowledge — of all the thoughts and acts of all the beings in all the systems of all the universes of all creation. Though we cannot fully grasp this technique of God's communion with his children, we can be strengthened in the assurance that the “Lord knows his children,” and that of each one of us “he takes note where we were born.”

32:4.9 (363.7) In your universe and in your heart the Universal Father is present, spiritually speaking,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central abode and, specifically, by the divine Adjuster who lives and works and waits in the depths of the mortal mind.

32:4.10 (363.8) God is not a self-centered personality; the Father freely distributes himself to his creation and to his creatures. He lives and acts, not only in the Deities, but also in his Sons, whom he intrusts with the doing of everything that it is divinely possible for them to do. The Universal Father has truly divested himself of every function which it is possible for another being to perform. And this is just as true of mortal man as of the Creator Son who rules in God's stead at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Thus we behold the outworking of the ideal and infinit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32:4.11 (364.1) In this universal bestowal of himself we have abundant proof of both the magnitude and the magnanimity of the Father's divine nature. If God has withheld aught of himself from the universal creation, then of that residue he is in lavish generosity bestowing the Thought Adjusters upon the mortals of the realms, the Mystery Monitors of time, who so patiently indwell the mortal candidates for life everlasting.

32:4.12 (364.2) The Universal Father has poured out himself, as it were, to make all creation rich in personality possession and potential spiritual attainment. God has given us himself that we may be like him, and he has reserved for himself of power and glory only that which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ose things for the love of which he has thus divested himself of all things else.

5.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32:5.1 (364.3) There is a great and glorious purpose in the march of the universes through space. All of your mortal struggling is not in vain. We are all part of an immense plan, a gigantic enterprise, and it is the vastness of the undertaking that renders it impossible to see very much of it at any one time and during any one life. We are all a part of an eternal project which the Gods are supervising and outworking. The whole marvelous and universal mechanism moves on majestically through space to the music of the meter of the

지나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높은 영적 이상{理想}이다. 시간세계의 사건과 물질 실존의 투쟁은, 다른 편, 즉 영적 실체와 승고한 실존의 약속된 땅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는 일시적 발판에 불과하다. 물론, 너희 필사자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관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이라는 것을, 아무리 사고해도 납득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희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개별 인생, 어떤 영역의 지속기간, 또는 어떤 일련의 연결된 사건이든지 그 연대기{年代記}를 볼 때, 우리는 분리된 연속 시간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일련의 그런 체험, 인생, 시대, 또는 시기들이 연속으로 배열될 때, 하나의 일직선 도로, 즉 영원성의 무한한 표면을 순간적으로 가로지르는 변칙이는 시간의 독립된 사건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더 포괄적인 조망과 더욱 완성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설명은 부적당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서, 시간세계의 진행사항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목적과 영원성의 근본적인 반응을 달리 상호 관련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필사 정신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영원성을 한 주기{週期}로,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끝없는 궤도{軌道}, 즉 어떤 면에서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시간 주기와 동조된 영원성의 주기로 상상하는 것이, 내게는 더 적당해 보인다. 영원성 주기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간의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덧없는 일시적 존재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이, 그런 현세적인 시기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조울사**와 융합하는 영 수준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데, 죽음으로 인한 변질은, 그들이 시간의 족쇄와 물질 창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정이며, 그리하여 점진적인 영원성 행진에 영적 발걸음을 맞추게 된다. 너희는, 이런 당하는 덧없는 인생과 물질 실존에서 생존함으로써, 영원한 시대라는 원궤도{圓軌道}를 둘러싼 공간 세계들과 함께 끊임없이 회전하는 영원성과 계속 접촉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영원성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의 구역들은 인격체가 일시적 형체를 입고 휙 지나감 같으며; 영원한 원궤도 주위를 끝없이 회전하는, 비교적 고상한 인생 속에 오직 새로운 연기자 및 연속된 요소로서 다시 나타나기 위해, 한 시절 나타났다가, 인간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만유의 아버지**의 중앙 거주지 처소 주위에서 어떤 방대하고 길쭉한 원궤도를 따라서 제한된 우

infinite thought and the eternal purpose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32:5.2 (364.4) The eternal purpose of the eternal God is a high spiritual ideal. The events of time and the struggles of material existence are but the transient scaffolding which bridges over to the other side, to the promised land of spiritual reality and supernal existence. Of course, you mortals find it difficult to grasp the idea of an eternal purpose; you are virtually unable to comprehend the thought of eternity, something never beginning and never ending. Everything familiar to you has an end.

32:5.3 (364.5) As regards an individual life, the duration of a realm, or the chronology of any connected series of events, it would seem that we are dealing with an isolated stretch of time; everything seems to have a beginning and an end. And it would appear that a series of such experiences, lives, ages, or epochs, when successively arranged, constitutes a straightaway drive, an isolated event of time flashing momentarily across the infinite face of eternity. But when we look at all this from behind the scenes, a more comprehensive view and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suggest that such an explanation is inadequate, disconnected, and wholly unsuited properly to account for, and otherwise to correlate, the transactions of time with the underlying purposes and basic reactions of eternity.

32:5.4 (364.6) To me it seems more fitting, for purposes of explanation to the mortal mind, to conceive of eternity as a cycle and the eternal purpose as an endless circle, a cycle of eternity in some way synchronized with the transient material cycles of time. As regards the sectors of time connected with, and forming a part of, the cycle of eternity, we are forced to recognize that such temporary epochs are born, live, and die just as the temporary beings of time are born, live, and die. Most human beings die because, having failed to achieve the spirit level of Adjuster fusion, the metamorphosis of death constitutes the only possible procedure whereby they may escape the fetters of time and the bonds of material creation, thereby being enabled to strike spiritual step with the progressive procession of eternity. Having survived the trial life of time and material existence, it becomes possible for you to continue on in touch with, even as a part of, eternity, swinging on forever with the worlds of space around the circle of the eternal ages.

32:5.5 (365.1) The sectors of time are like the flashes of personality in temporal form; they appear for a season, and then they are lost to human sight, only to reappear as new actors and continuing factors in the higher life of the endless swing around the eternal circle. Eternity can hardly be conceived as a straightaway drive, in view of our

주가 움직인다고 믿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영원성을 도저히 직선 도로처럼 생각할 수 없다.

솔직히, 영원성은 덧없는 유한한 정신에게 납득될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 뿐이며; 납득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상상할 수 없으며, 또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내 개념을 인간 정신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의 관점을 일마간 묘사하려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느 정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 나는 무한한 본성과 영원한 취지에 해당하는 이 가치에 관한 너희 생각을 구체화하는 일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의 정신에는, 그의 방대한 영역 전체에 있는 각 피조물마다 포함하는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은 무한한 기회, 한없는 진보, 끝없는 생명을 주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비길 데 없는 무한한 보물이 노력에 따라서 너희의 소유가 된다!

영원성의 결승점이 앞에 있다! 신성을 달성하는 모험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완전성을 향한 경주가 시작됐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주하는 **조울사**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그토록 값없이 쏟아 부어져 온 **우주 아들**의 선한 영의 안내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으며 신앙과 신뢰의 경주를 달리게 될 모든 인간마다, 그 수고에 확실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네바돈의 최상급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속되고,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이 임무에 배정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belief in a delimited universe moving over a vast, elongated circle around the central dwelling place of the Universal Father.

32:5.6 (365.2) Frankly, eternity is incomprehensible to the finite mind of time. You simply cannot grasp it; you cannot comprehend it. I do not completely visualize it, and even if I did, it would be impossible for me to convey my concept to the human mind. Nevertheless, I have done my best to portray something of our viewpoint, to tell you somewhat of our understanding of things eternal. I am endeavoring to aid you in the crystallization of your thoughts about these values which are of infinite nature and eternal import.

32:5.7 (365.3) There is in the mind of God a plan which embraces every creature of all his vast domains, and this plan is an eternal purpose of boundless opportunity, unlimited progress, and endless life. And the infinite treasures of such a matchless career are yours for the striving!

32:5.8 (365.4) The goal of eternity is ahead! The adventure of divinity attainment lies before you! The race for perfection is on! whosoever will may enter, and certain victory will crown the efforts of every human being who will run the race of faith and trust, depending every step of the way on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on the guidance of that good spirit of the Universe Son, which so freely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32:5.9 (365.5)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upreme Council of Nebadon and assigned to this mission by Gabriel of Salvington.]

제33편. 지방우주의 경영

⇨ 032

유랜시아 책

034 ⇨

II 부. 지방우주

제33편
지방우주의 경영

섹션

소개

1. 네바돈의 미가엘
2. 네바돈의 주권자
3. 우주 아들과 우주 영
4. 가브리엘--최고 행정관
5. 삼위일체 대사
6. 일반 경영
7. 네바돈의 법정
8.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소개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광대한 창조계를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데, 지방우주의 경영에서는 **창조주 아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작용하신다. **아버지**는, 지방우주를 경영하는 직무에서는 달리 몸소 작용하지 않으신다. 이 문제는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녀에게 맡겨져 있다. 이 **아들**이 지방우주의 계획, 정책, 및 경영 행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영{靈}** 동역자와 공동으로 행정 권한을 **가브리엘**에게 위임하고, 사법 권한은, **성좌 아버지**, **체계 주권자**, 및 **행성 왕자**들에게 위임한다.

1. 네바돈의 미가엘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서 동시에 기원된, 무한한 정체성에 속하는 611,121번째의 원래 개념이 의인화{擬人化}

PAPER 33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Michael of Nebadon
2. The Sovereign of Nebadon
3. The Universe Son and Spirit
4. Gabriel — The Chief Executive
5. The Trinity Ambassadors
6. General Administration
7. The Courts of Nebadon
8.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Functions

INTRODUCTION

33:0.1 (366.1) WHILE the Universal Father most certainly rules over his vast creation, he functions in a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through the person of the Creator Son. The Father does not otherwise personally function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These matters are intrusted to the Creator Son and to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to their manifold children. The plan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cts of the local universe are formed and executed by this Son, who, in conjunction with his Spirit associate, delegates executive power to Gabriel and jurisdictional authority to the Constellation Fathers, System Sovereigns, and Planetary Princes.

1. MICHAEL OF NEBADON

33:1.1 (366.2) Our Creator Son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611,121st original concept of infinite identity of simultaneous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and

된 분이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신성 및 무한성의 이 611,121번째 우주 개념을 인격화시키는 “독생 {獨生} **아들**”이다. 그의 본부는 **살빙톤**에 있는 빛나는 삼중 {三重} 맨션에 있다. 그리고 이 거주지는 매우 질서를 갖췄는데, **미가엘**이 지성 피조 실존의 세 국면, 즉: 영적 국면, 모론시아 국면, 및 물질 국면을 전부 사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중여와 관련된 이름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불린다.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아니며,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실존적 **낙원** 동역자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낙원 삼위 일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오름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실제로 **살빙톤**에 나타나고 **네바돈**에서 활동했다면 직접 보여줬을, 모든 신성한 속성과 권능을 자신의 범주 안에 지닌다. **미가엘**은 추가된 권능과 권세도 지니는데, **영원한 아들**을 의인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방우주에 그리고 그 안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현존을 충분히 대변하고 실제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_아들**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관계들이, 미숙한 피조 존재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진화 우주를 직접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신성한 존재 중에서, **창조주 아들**을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살빙톤**에 직접 현존했다면 그가 발휘했을 바로 그 영적 {靈的} 흡인력, 즉 영 인력을 지방우주 본부에서 행사하고, 그리고 그 **이상 {以上} 이따**; 이 **우주 아들**은 또한 **네바돈** 우주에 대해 **만유의 아버지**가 의인화된 분이기도 하다.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 아버지_아들**의 영적 세력을 위하여 인격의 중심이 된다. **창조주 아들**들은 **칠중 하나님**의 강력한 시_공간 속성들이 최종적으로 초점 {焦點}에 집중된 권능의_인격이다.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권한을 행사하도록 인격화된 분이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 협조자이며, **무한한 영**의 창조 동역자다. **주권자 아들**은, 우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에게 모든 실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분별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낙원 신격**들 전체를 의인화시킨다. 이 **아들**과 그 **영** 동역자는 너희의 창조자 부모이다.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너희에게 최상의 인격체이며; **영원한 아들**은 너희에게 최고지존이시다--무한한 **신격** 인격체시다.

우리의 통치자인 신성한 부모가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자 안에 계시는데,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살빙톤**에 함께 현존하고 **네바돈** 우주의 직무에 대한 경영에 참여했다라면 그리하셨을 만큼, 강력하고 유능하며 인정 많으시다.

the Eternal Son. The Michael of Nebadon is the “only-begotten Son” personalizing this 611,121st universal concept of divinity and infinity. His headquarters is in the threefold mansion of light on Salvington. And this dwelling is so ordered because Michael has experienced the living of all three phases of intelligent creature existence: spiritual, morontial, and material. Because of the name associated with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on Urantia, he is sometimes spoken of as Christ Michael.

33:1.2 (366.3) Our Creator Son is not the Eternal Son, the existential Paradise associat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Michael of Nebadon is not a member of the Paradise Trinity. Nevertheless our Master Son possesses in his realm all of the divine attributes and powers that the Eternal Son himself would manifest were he actually to be present on Salvington and functioning in Nebadon. Michael possesses even additional power and authority, for he not only personifies the Eternal Son but also fully represents and actually embodies the personality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o and in this local universe. He even represents the Father-Son. These relationships constitute a Creator Son the most powerful, versatile, and influential of all divine beings who are capable of direct administration of evolutionary universes and of personality contact with immature creature beings.

33:1.3 (366.4) Our Creator Son exerts the same spiritual drawing power, spirit gravity,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at the Eternal Son of Paradise would exert if he were personally present on Salvington, and *more*; this Universe Son is also the personific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universe of Nebadon. Creator Sons are personality centers for the spiritual forces of the Paradise Father-Son. Creator Sons are the final power-personality focalizations of the mighty time-space attributes of God the Sevenfold.

33:1.4 (367.1) The Creator Son is the vicegerent personaliz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divinity co-ordinate of the Eternal Son, and the creative associate of the Infinite Spirit. To our universe and all its inhabited worlds the Sovereign Son i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God. He personifies all of the Paradise Deities which evolving mortals can discerningly comprehend. This Son and his Spirit associate *are* your creator parents. To you, Michael, the Creator Son, is the supreme personality; to you, the Eternal Son is supersupreme — an infinite Deity personality.

33:1.5 (367.2) In the person of the Creator Son we have a ruler and divine parent who is just as mighty, efficient, and beneficent as would b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if both were present on Salvington and engag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universe of

Nebadon.

2. 네바돈의 주권자

창조주 아들들을 관찰하면, 더러는 **아버지**를 더 닮고, 더러는 **아들**을 더 닮았으며, 한편 더러는 그들의 무한한 부모의 조합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을 더 많이 닮은 특징과 속성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

미가엘은 이 지방우주를 조직하기로 선택했고, 거기서 지금 주권을 갖고 군림한다. 그의 개인 권능은, **낙원**에 중심을 두는 선제하는 인력 회로에 제한을 받고, 또한 인격자의 소멸에 관해서 모든 최종 집행 판결을 내리는, 연방우주 정부의 **태고 항존자**들 편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에 제한을 받는다. 인격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증여하시지만, **창조주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을 설계하기 시작하며, **영** 동역자들의 협동 작업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_물질의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미가엘은, **네바돈** 지방우주에 그리고 그 지방 우주 안에, **낙원 아버지_아들**이 의인화{擬人化}된 분이며; 따라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마지막 증여를 마치고 돌아와, 지방우주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 **창조적 어머니 영**이 그에게 자신을 종속시켰을 때, **오름 아들**은 이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다.

신성한 사역자가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에게 이렇게 종속된 것은, 유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神性}을, 이 **오름 아들**이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미가엘**이 피조물로서 증여했던 체험은, **지존하신 분**의 체험적 신성을 묘사할 수 있는 자격을 세 분에게 드린다. 우주들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도, 현재의 유한한 체험의 잠재력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쏟아 붓지 못했으며, 우주들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가엘의 본부가 비록 공식적으로 **네바돈**의 수도{首都}인 **살빙톤**에 위치하더라도, 그는 자기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성좌와 체계 본부 그리고 심지어 개별 행성 방문에 사용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낙원**으로 여행하고, 자주 **우버사**에 들리는 데, 거기서 **태고 항존자**들과 상의한다. 그가 **살빙톤**에서 떠났을 때, 그의 자리는 **가브리엘**이 대신하는데, 그때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섭정{攝政}으로서 활약한다.

3. 우주 아들과 우주 영

2. THE SOVEREIGN OF NEBADON

33:2.1 (367.3) Observation of Creator Sons discloses that some resemble more the Father, some the Son, while others are a blend of both their infinite parents. Our Creator Son very definitely manifests traits and attributes which more resemble the Eternal Son.

33:2.2 (367.4) Michael elected to organize this local universe, and herein he now reigns supreme. His personal power is limited by the pre-existent gravity circuits centering at Paradise and by the reservation on the part of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all final executive judgments regarding the extinction of personality. Personality is the sole bestowal of the Father, but the Creator Sons, with the approval of the Eternal Son, do initiate new creature designs, and with the working co-operation of their Spirit associates they may attempt new transformations of energy-matter.

33:2.3 (367.5) Michael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aradise Father-Son to and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erefore, when the Creative Mother Spirit, the local universe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ubordinated herself to Christ Michael upon the return from his final bestowal on Urantia, the Master Son thereby acquired jurisdiction over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33:2.4 (367.6) This subordination of the Divine Ministers to the Creator Sons of the local universes constitutes these Master Sons the personal repositories of the finitely manifestable divinity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while the creature-bestowal experiences of the Michaels qualify them to portray the experiential divinity of the Supreme Being. No other beings in the universes have thus personally exhausted the potentials of present finite experience, and no other beings in the universes possess such qualifications for solitary sovereignty.

33:2.5 (367.7) Although Michael's headquarters is officially located on Salvington, the capital of Nebadon, he spends much of his time visiting the constellation and system headquarters and even the individual planets. Periodically he journeys to Paradise and often to Uversa, where he counsels with the Ancients of Days. When he is away from Salvington, his place is assumed by Gabriel, who then functions as regent of the universe of Nebadon.

3. THE UNIVERSE SON AND SPIRIT

무한한 영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체에 두루 퍼지면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으로 협동하는 기법으로, 충만한 인격 특성들을 획득하는 하나의 특화된 집중체(集中體)로서, 각 지방우주 본부로부터 작용한다. 한 지방우주를 고려할 때, **창조주 아들**의 경영 권한은 가장 높으며; **신성한 사역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완전하게 대등함에도, 전적으로 협동적이다.

살빙톤의 우주 어머니 영, 즉 **네바돈**을 통제하고 경영하는 **미가엘**의 동역자는, **최상급 영**들 가운데 여섯째 집단에 속하는데, 그 계층에서는 611,121번째다. 그는 **미가엘**이 **낙원** 책무에서 해방되는 경우에 자진해서 그와 동행했고, 그 후로 항상 그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면서 활동해 왔다.

으뜸 창조주 아들은 자기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주권자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모든 면에서는 **우주 영**이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지휘한다. **영**은 언제든지 **아들**을 주권자 및 통치자로 인정하며, 한편 **아들**은 **영**을 그 영역의 모든 직무에서 대등한 위치 및 동일한 권세자로 간주한다. 온전히 지혜롭고 언제나 충실한 **우주 영**과 천사 인격체들로 이뤄진, 그의 다양한 수행원은,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창조주 아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생명을 증여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지지하고 숨겨 있게 보조한다. 그런 **신성한 사역자**는 실제로는 영들과 영 인격체들의 어머니이고, **창조주 아들**에게 늘 현존하고 전적으로 지혜로운 충고자이며, **낙원**의 **무한한 영**을 신실하고 참되게 나타낸다.

아들은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아버지로서 활동한다. 필사 피조물이 이해하듯이, **영**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데, 항상 **아들**을 보좌하고 우주 경영에 영구히 필수적이다. 반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직 **아들**과 그의 연합된 **아들**들만 구원자로서 활약할 수 있다. **영**은 반역에 대응하거나 권위를 방어할 책임을 결코 맡을 수 없지만, 악으로 더럽혀지거나 죄의 지배를 받는 세계들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정부를 안정시키려고 **아들**이 노력하는 동안, 그에게 체험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영**은 그를 항상 지원한다. 오직 **아들**만이 그들의 공동 창조 업무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필사적 사람의 복지와 그들의 신성한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신실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영 도우미인 **하나님**의 딸들로 이뤄진, 그 광대한 회중과 **신성한 사역자**의 끊임없는 협동 없이는, 어떤 **아들**도 최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창조주 아들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피조물 증여가 완성됨에 따라서, **신성한 사역자**가 가끔 격리되던 불확실성이 종결됐으며, **아들**의 우주 도우미는 확실성과 통제 속에 영구히 정착하게 됐다. **창조주 아들**이 **으뜸 아들**로서 보좌에 앉게 됐

33:3.1 (368.1) While pervading all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from the headquarters of each local universe as a specialized focalization acquiring full personality qualities by the technique of creative co-operation with the Creator Son. As concerns a local univer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a Creator Son is supreme; the Infinite Spirit, as the Divine Minister, is wholly co-operative though perfectly co-ordinate.

33:3.2 (368.2) The Universe Mother Spirit of Salvington, the associate of Michael in the control and administration of Nebadon, is of the sixth group of Supreme Spirits, being the 611,121st of that order. She volunteered to accompany Michael on the occasion of his liberation from Paradise obligations and has ever since functioned with him in creating and governing his universe.

33:3.3 (368.3) The Master Creator Son is the personal sovereign of his universe, but in all the details of its management the Universe Spirit is codirector with the Son. While the Spirit ever acknowledges the Son as sovereign and ruler, the Son always accords the Spirit a co-ordinate position and equality of authority in all the affairs of the realm. In all his work of love and life bestowal the Creator Son is always and ever perfectly sustained and ably assisted by the all-wise and ever-faithful Universe Spirit and by all of her diversified retinue of angelic personalities. Such a Divine Minister is in reality the mother of spirits and spirit personalities, the ever-present and all-wise adviser of the Creator Son, a faithful and true manifestation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33:3.4 (368.4) The Son functions as a father in his local universe. The Spirit, as mortal creatures would understand, enacts the role of a mother, always assisting the Son and being everlastingly indispensable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In the face of insurrection only the Son and his associated Sons can function as deliverers. Never can the Spirit undertake to contest rebellion or defend authority, but ever does the Spirit sustain the Son in all of everything he may be required to experience in his efforts to stabilize government and uphold authority on worlds tainted with evil or dominated by sin. Only a Son can retrieve the work of their joint creation, but no Son could hope for final success without the incessant co-operation of the Divine Minister and her vast assemblage of spirit helpers, the daughters of God, who so faithfully and valiantly struggle for the welfare of mortal men and the glory of their divine parents.

33:3.5 (368.5) Upon the completion of the Creator Son's seventh and final creature bestowal, the uncertainties of periodic isolation terminate for the Divine Minister, and the Son's universe helper becomes forever settled in surety and control. It is

을 때, 소집된 무리들 앞에서, **우주 영**이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고 **아들**에 대한 순종을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처음 선포했는데, 이것은 축제 중의 축제였다. 이 사건은,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마친 후 **살빙톤**으로 돌아왔을 때, **네바돈**에서 발생했다. 중대한 이 행사가 있기 전에는, **우주 영**이 **우주 아들**에게 종속된다고 결코 고백한 적이 없었으며, **영**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의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진실하게 선포될 수 없었다.

창조적 어머니 영이 이렇게 종속 맹세를 한 후에도,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 **영**을 우주 영토에 대한 공동통치자로 임명하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면서, 자신도 **영** 동무에게 영원토록 의존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했으며; 최종적인 “**동등 선언문**”을 반포하고 널리 알렸다. **아들**은 이 지방우주의 주권자였음에도, 신성한 성품의 인격과 속성들로 이뤄진 모든 재능에서 자신과 **영**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공간에 있는 세계들의 하위 피조물에게도, 가정{家庭}을 조직하고 운영하기에 탁월한 원형{原型}이 됐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가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인간 제도의 높은 이상{理想}이다.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가족의 아들과 딸을 지키고 보살피듯이, **아들**과 **영**은 지금, 우주를 주재하고 보살피고 있다. **우주 영**을 **창조주 아들**들의 창조적 동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영역의 피조물을 그들의 아들과 딸로--곧 광대하고 영광스런 가족이지만 막대한 책무와 끝없는 보살핌이 있는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특정한 우주 자녀의 창조를 **아들**이 개시하며, 한편 **영**은 수많은 계층의 영{靈} 인격체 산출을 홀로 책임지는데, 이 인격체들은 동일한 이 **어머니 영**의 지시와 안내를 받아서 돌보고 섬긴다. 다른 유형의 우주 인격체들을 창조할 때, **아들**과 **영**은 함께 활동하며, 어떤 창조 행위에서도 두 분 가운데 누구든지 다른 분의 충고와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4. 가브리엘--최고 행정관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에 현현{顯現}한 **무한한 영**이 산출한, 첫 정체성 개념 및 이상적{理想的} 인격이 인격화된 존재다. 지방우주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주 아들**과 **어머니 영**이 합동하여 창조 연합체로서 결속

at the enthronement of the Creator Son as a Master Son, at the jubilee of jubilees, that the Universe Spirit, before the assembled hosts, first makes public and universal acknowledgment of subordination to the Son, pledging fidelity and obedience. This event occurred in Nebadon at the time of Michael's return to Salvington after the Urantian bestowal. Never before this momentous occasion did the Universe Spirit acknowledge subordination to the Universe Son, and not until after this voluntary relinquishment of power and authority by the Spirit could it be truthfully proclaimed of the Son that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committed to his hand.”

33:3.6 (369.1) After this pledge of subordination by the Creative Mother Spirit, Michael of Nebadon nobly acknowledged his eternal dependence on his Spirit companion, constituting the Spirit coruler of his universe domains and requiring all their creatures to pledge themselves in loyalty to the Spirit as they had to the Son; and there issued and went forth the final “Proclamation of Equality.” Though he was the sovereign of this local universe, the Son published to the worlds the fact of the Spirit's equality with him in all endowments of personality and attributes of divine character. And this becomes the transcendent pattern for the family organization and government of even the lowly creatures of the worlds of space. This is, in deed and in truth, the high ideal of the family and the human institution of voluntary marriage.

33:3.7 (369.2) The Son and the Spirit now preside over the universe much as a father and mother watch over, and minister to, their family of sons and daughters. It is not altogether out of place to refer to the Universe Spirit as the creative companion of the Creator Son and to regard the creatures of the realms as their sons and daughters — a grand and glorious family but one of untold responsibilities and endless watchcare.

33:3.8 (369.3) The Son initiates the creation of certain of the universe children, while the Spirit is solely responsible for bringing into existence the numerous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who minister and serve under the direction and guidance of this selfsame Mother Spirit. In the creation of other types of universe personalities, both the Son and the Spirit function together, and in no creative act does the one do aught without the counsel and approval of the other.

4. GABRIEL — THE CHIEF EXECUTIVE

33:4.1 (369.4)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the personalization of the first concept of identity and ideal of personality conceived by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Going back to the early days of the local universe, before the union of the Creator Son and

하기 전에, 다재다능한 아들과 딸들로 구성된 가족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한 이 두 인격자의 이런 자유로운 초기 연합체의 최초 공동 행위의 결과로, **아들과 영의** 최고 영 인격체인 **빛나는 새벽별**이 창조된다.

지혜롭고 위엄 있는 그런 존재는, 각 지방우주에 오직 하나씩만 생겨난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은**, 신성(神性)이 그들과 동등한 **아들을** 무제한 창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창조하지만, 그런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딸들**과 합동하여 각 우주에서 **빛나는 새벽별**을 오직 하나만 창조할 수 있는데, 그 **새벽별**은 그분들과 비슷하며, 그분들의 창조 특권을 제외한 통합된 본성을 자유롭게 띤다. **살빙톤의 가브리엘**은 **신격** 속성에서는 현저히 제한돼 있음에도, 신성의 본성에서는 **우주 아들과** 비슷하다.

새 우주의 부모가 낳은 이 첫 태생은 독특한 인격체인데, 어느 한 쪽 선조에게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여러 특징을 지니고, 전례 없는 다재다능함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특징을 지닌 존재다. 숭고한 이 인격체는, **영의** 창조적 상상력과 조합된, **아들의** 신성한 뜻을 포함한다. **빛나는 새벽별**의 사고(思考)와 행동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 양쪽을 언제든지 충분히 대행할 것이다. 그런 존재는 또한, 영적 스랍 무리와, 물질적이고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 양쪽을 널리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교감하면서 접촉을 이룰 수 있다.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놀랄만한 경영자인데, **창조주 아들의** 개인적인 경영 대리인이다. **아들과 영**은, 창조하고 생명을 수여하는 경우 외에는, **가브리엘**의 참여 없이 중요한 우주 절차를 결코 협의하지 않는다.

살빙톤의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최고 행정관이며, 그 경영에 관한 모든 행정상 요청을 중재하는 자다. 이 우주 행정관은, 자기 업무에 합당한 재능을 충분히 부여받은 채 창조됐지만, 우리 지방 창조물이 성장하고 진화됨에 따라서 체험을 쌓아 왔다.

가브리엘은 지방우주에서 인격없는 직무와 관계되는 연방우주 명령을 집행하는 최고 관리다. **태고 항존자들**이 관철하는, 집단 심판과 섭리시대 부활(復活)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집행하는 것 역시,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에게 위임돼 있다. 따라서 **가브리엘**은, 연방우주 통치자와 지방우주 통치자 모두에게 최고 행정관이다. 그는 자신의 지휘 하에 유능한 단체의 경영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창조됐고, 진화 필사자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 이 보좌관들 외에, **가브리엘**은 **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천상의 존재 계층들 전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하

the Mother Spirit in the bonds of creative association, back to the time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their versatile family of sons and daughters, the first conjoint act of this early and free association of these two divine persons results in the creation of the highest spirit personality of the Son and the Spiri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33:4.2 (369.5) Only one such being of wisdom and majesty is brought forth in each local univers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can, in fact do, create an unlimited number of Sons in divinity equal to themselves; but such Sons, in union with the Daughters of the Infinite Spirit, can create only one Bright and Morning Star in each universe, a being like themselves and partaking freely of their combined natures but not of their creative prerogatives. Gabriel of Salvington is like the Universe Son in divinity of nature though considerably limited in the attributes of Deity.

33:4.3 (369.6) This first-born of the parents of a new universe is a unique personality possessing many wonderful traits not visibly present in either ancestor, a being of unprecedented versatility and unimagined brilliance. This supernal personality embraces the divine will of the Son combined with the creative imagination of the Spirit. The thoughts and act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ill ever be fully representative of both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Such a being is also capable of a broad understanding of, and sympathetic contact with, both the spiritual seraphic hosts and the material evolutionary will creatures.

33:4.4 (370.1)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not a creator, but he is a marvelous administrator, being the personal administrative representative of the Creator Son. Aside from creation and life impartation the Son and the Spirit never confer upon important universe procedures without Gabriel's presence.

33:4.5 (370.2) Gabriel of Salvington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arbiter of all executive appeals respecting its administration. This universe executive was created fully endowed for his work, but he has gained experience with the growth and evolution of our local creation.

33:4.6 (370.3) Gabriel is the chief officer of execution for superuniverse mandates relating to nonpersonal affairs in the local universe. Most matters pertaining to mass judgment and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adjudicated by the Ancients of Days, are also delegated to Gabriel and his staff for execution. Gabriel is thus the combined chief executive of both the super- and the local universe rulers. He has at his command an able corp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created for their special work, who are unrevealed to evolutionary mortals. In addition to these

늘 군대"--곧 천군(天軍)--의 총사령관이기도 하다.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는 선생이 아니며; 경영자다. **미가엘**이 피조물 증여로 육신화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신의 통상 업무에서 떠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 차례 증여되는 동안, **가브리엘**은 육신화 된 **아들**의 뜻을 항상 따랐으며, 후반부 증여들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합동 항존자**의 협조를 받아서 우주 직무를 실제로 지휘하는 자가 됐다.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한 이후로, **가브리엘**은 **유란시아**의 역사와 발전에 항상 밀접하게 관련돼 왔다.

증여 세계들에서, 그리고 일반_부활 및 특별_부활 출석점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브리엘**을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창조계의 경영 업무에 소집되기 전에 지방우주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동안, 필사자는 그를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다. 경영자로서 어떤 계층이나 등급에 속하든지, 너희는 **가브리엘**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5. 삼위일체 대사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들의 경영은 연방우주 정부에서 끝난다. 지방우주의 특징은 이중{二重}으로 감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어머니 개념의 시작이다. 지방우주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이며; 우주의 어머니는 **신성한 사역자**, 즉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이다. 아무튼, 각 지방우주마다 중앙우주와 **낙원**으로부터 특정한 인격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복을 누린다. **네바돈**에서 이 **낙원** 집단 우두머리는, **낙원 삼위일체**의 대사{大使}인--곧 **살빙톤**의 **임마누엘**인--, **네바돈** 지방우주에 배정된 **합동 항존자**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고위 **삼위일체 아들**은 **창조주 아들**의 법정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대리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지존하신 삼위일체 인격체들의 여섯째 계층 가운데 611,121_번인 **살빙톤**의 **임마누엘**은, 탁월한 존엄성을 갖춘 존재이며,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예찬을 거절할 만큼 최고로 겸손한 존재다. **임마누엘**은, 전체 **네바돈**에서 형제 **미가엘**에게 종속됨을 결코 표명한 적이 없는 유일한 인격체일 정도로, 탁월성을 갖고 있다. 그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주권자 아들**에게 자문가로서 활약한다. 그는 **창조주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높은 우주 협의회를 주관할 수 있지만,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우주의 행정 직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바돈에 온 이 **낙원** 대사는, 지방우주 정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성좌 본부에

assistants, Gabriel may employ any and all of the orders of celestial beings functioning in Nebadon, and he is also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ies of heaven" — the celestial hosts.

33:4.7 (370.4) Gabriel and his staff are not teachers; they are administrators. They were never known to depart from their regular work except when Michael was incarnated on a creature bestowal. During such bestowals Gabriel was ever attendant on the will of the incarnated Son, and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Union of Days, he became the actual director of universe affairs during the later bestowals. Gabriel has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Urantia ever since the mortal bestowal of Michael.

33:4.8 (370.5) Aside from meeting Gabriel on the bestowal worlds and at the times of general- and special-resurrection roll calls, mortals will seldom encounter him as they ascend through the local universe until they are inducted into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local creation. As administrators, of whatever order or degree, you will come under the direction of Gabriel.

5. THE TRINITY AMBASSADORS

33:5.1 (370.6) The administration of Trinity-origin personalities ends with the government of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are characterized by dual supervision, the beginning of the father-mother concept. The universe father is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is the Divine Minister,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Every local universe is, however, blessed with the presence of certain personalities from the central universe and Paradise. At the head of this Paradise group in Nebadon is the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 Immanuel of Salvington — the Union of Days assigned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n a certain sense this high Trinity Son is also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court of the Creator Son; hence his name, Immanuel.

33:5.2 (370.7) Immanuel of Salvington, number 611,121 of the sixth order of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is a being of sublime dignity and of such superb condescension that he refuses the worship and adoration of all living creatures. He bear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personality in all Nebadon who has never acknowledged subordination to his brother Michael. He functions as adviser to the Sovereign Son but gives counsel only on request. In the absence of the Creator Son he might preside over any high universe council but would not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executive affairs of the universe except as requested.

33:5.3 (371.1) This ambassador of Paradise to Nebadon is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서 근무하면서 그와 접촉하는 형제들, 즉 **충실{忠實} 항존자**들을 감독하는 경우 외에는, 진화하는 지방우주의 행정 직무에 대해 강권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충실 항존자들은, **합동 항존자**와 마찬가지로, 요청받지 않는 한, 성좌 통치자들에게 결코 조언하거나 도움을 제안하지 않는다. 성좌에 파송된 이 **낙원** 대사들은, 지방우주에서 자문하는 임무로 활약하는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이 직접 현존하는 경우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 성좌는 지역 체계들보다 더 밀접하게 연방우주 경영에 관련돼 있는데, 지방우주에서 출생한 인격체들만이 지역 체계를 경영한다.

6. 일반 경영

가브리엘은 **네바돈**의 최고 행정관이며 실제 경영자다. **미가엘**이 **살빙톤**을 떠나더라도, 우주 직무의 규칙적인 운영은 어느 면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 **낙원**에서 최근에 **오르본톤 으뜸 아들**들의 재회 임무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가엘**이 없는 동안 **가브리엘**이 지방우주의 섭정{攝政}이 된다. 그럴 때 **가브리엘**은 모든 주요 문제에 관해 항상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충고를 요청한다.

아버지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의 수석{首席} 보좌관이다. **빛나는 새벽별**이 **살빙톤**에 없을 때, 이 원본 **멜기세덱 아들**이 그의 책임을 대행한다.

우주의 다양한 하위경영기관의 경우에, 그들에게 배정된 어떤 특별한 책임 범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 정부는 그에 속한 행성들의 복지를 보살피는 한편, 살아있는 존재들의 육체 상태, 즉 생물학적 문제에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성좌 통치자들은 각각의 행성과 체계들에 보급된 사회 및 정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성좌 정부는 주로 통합과 안정에 집중한다.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 통치자들은 그 영역의 영적 상태에 더 많이 관여한다.

대사{大使}는, 사법 명령에 따라서 지명되고, 우주를 다른 우주들에게 대변한다. 영사{領事}는, 성좌들 상호간에 대리하는 자이고, 지방우주 본부에게 성좌를 대리하는 자이며, 입법 명령에 따라서 지명되고, 오직 지방우주 경계 내에서만 활동한다. 입회자는, 다른 체계들에게 그리고 성좌 수도{首都}에서 그 체계를 대표하도록 **체계 주권자**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임명되며, 그들 역시 그 지방우주의 경계 내에서만 활동한다.

local universe government. Neither does he exercise authoritative jurisdiction in the executive affairs of an evolving local universe except in the supervision of his liaison brethren, the Faithfuls of Days, serving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33:5.4 (371.2) The Faithfuls of Days, like the Union of Days, never proffer advice or offer assistance to the constellation rulers unless it is asked for. These Paradise ambassadors to the constellations represent the final personal presence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functioning in advisory roles in the local universes. Constellation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an local systems, which are administered exclusively by personalitie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

6. GENERAL ADMINISTRATION

33:6.1 (371.3) Gabriel is the chief executive and actual administrator of Nebadon. Michael's absence from Salvington in no way interferes with the orderly conduct of universe affairs. During the absence of Michael, as recently on the mission of reunion of Orvonton Master Sons on Paradise, Gabriel is the regent of the universe. At such times Gabriel always seeks the counsel of Immanuel of Salvington regarding all major problems.

33:6.2 (371.4) The Father Melchizedek is Gabriel's first assistant. When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absent from Salvington, his responsibilities are assumed by this original Melchizedek Son.

33:6.3 (371.5) The various subadministrations of the universe have assigned to them certain special domains of responsibility. While, in general, a system government looks after the welfare of its planets, it is more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physical status of living beings, with biologic problems. In turn, the constellation rulers pay especial attention to the social and governmental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different planets and systems. A constellation government is chiefly exercised over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Still higher up, the universe rulers are more occupied with the spiritual status of the realms.

33:6.4 (371.6) Ambassadors are appointed by judicial decree and represent universes to other universes. Consuls are representatives of constellations to one another and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appointed by legislative decree and function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Observers are commissioned by executive decree of a System Sovereign to represent that system to other systems and at the constellation capital, and they, too, function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살빙톤으로부터, 성좌 본부, 체계 본부, 그리고 각 행성들에게 방송이 동시에 송출(送出)된다. 비교적 높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는 모두,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과 소식을 나누게 하는 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주 방송은, 모든 인간 거주 세계에, 그들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도달한다. 행성 간 상호 연락은, 영적으로 격리된 세계에만 금지된다.

성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가 성좌의 방송을 성좌 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출한다.

살빙톤에 있는 특별한 집단의 존재들이 연대기{年代記}를 계산하고 평가하며 수정한다. **네바돈**의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8일 6시간 2분 30초에 해당한다. **네바돈**의 1년은 **우버사** 회로에 관계된 우주 회전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며, 표준 우주 시간으로 100일과 같은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5년에 해당된다.

살빙톤에서 방송되는 **네바돈** 시간은, 이 지방 우주에 있는 모든 성좌와 체계에게 표준이 된다. 각 성좌는 **네바돈** 시간에 맞춰서 그 직무를 처리하지만, 체계들은 개별 행성과 마찬가지로 자체 연대기를 유지한다.

사타니아에서 하루는, **예루셈**에서 계산된 것처럼,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1시간, 4분, 15초) 짧다.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살빙톤** 시간 또는 우주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타니아** 시간 또는 체계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시간은 우주 시간이다.

7. 네바돈의 법정

으뜸 아들인 **미가엘**은, 오직 세 가지 일, 즉: 창조, 유지, 및 돌봄에만 최고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우주의 사법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창조주**들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결코 앉지 않으며; 그것은 고도의 훈련과 실제 피조물 체험을 겪은 피조물의 독점 기능이다.

네바돈의 전체 사법 장치는 **가브리엘**의 감독 아래 있다. **살빙톤**에 위치한 고등법원은, 체계 법정들에서 올라오는 항소 사건과 일반적인 우주 유입 문제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 우주 법정에는 70개 지부가 있으며, 이 지부들은 일곱 부서로 작용하고, 각 부서는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판결하는 모든 문제에 이중{二重} 사법적책이 주재{主宰}하는데, 완비된 선제자{先在者} 가운데 한 명의 판사와, 상승 체험을 겪은 한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33:6.5 (371.7) From Salvington, broadcasts are simultaneously directed to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the system headquarters, and to individual planets. All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are able to utilize this service for communication with their fellows scattered throughout the universe. The universe broadcast is extended to all inhabited worlds regardless of their spiritual status. Planetary intercommunication is denied only those worlds under spiritual quarantine.

33:6.6 (372.1) Constellation broadcasts are periodically sent out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by the chief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33:6.7 (372.2) Chronology is reckoned, computed, and rectified by a special group of beings on Salvington. The standard day of Nebadon is equal to eighteen days and six hours of Urantia time, plus two and one-half minutes. The Nebadon year consists of a segment of the time of universe swing in relation to the Uversa circuit and is equal to one hundred days of standard universe time, about five years of Urantia time.

33:6.8 (372.3) Nebadon time, broadcast from Salvington, is the standard for all constellations and systems in this local universe. Each constellation conducts its affairs by Nebadon time, but the systems maintain their own chronology, as do the individual planets.

33:6.9 (372.4) The day in Satania, as reckoned on Jerusem, is a little less (1 hour, 4 minutes, 15 seconds) than three days of Urantia time. These times are generally known as Salvington or universe time, and Satania or system time. Standard time is universe time.

7. THE COURTS OF NEBADON

33:7.1 (372.5) The Master Son, Michael, is supremely concerned with but three things: creation, sustenance, and ministry. He does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judicial work of the universe. Creators never sit in judgment on their creatures; that is the exclusive function of creatures of high training and actual creature experience.

33:7.2 (372.6) The entire judicial mechanism of Nebadon is under the supervision of Gabriel. The high courts, located on Salvington, are occupied with problems of general universe import and with the appellate cases coming up from the system tribunals. There are seventy branches of these universe courts, and they function in seven divisions of ten sections each. In all matters of adjudication there presides a dual magistracy consisting of one judge of perfection antecedents and one magistrate of ascendant experience.

판결에 관해서, 지방우주 법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1. 지방우주 경영은, 창조, 진화, 유지, 및 돌봄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지방우주 법정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소송사건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맞이하는 자연사와는 관계없지만, 계속되는 실존, 즉 영원한 생명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르본톤** 법정으로 회부되며, 그 개인에게 불리하게 결정 되면, 사멸(死滅)에 대한 모든 판결문은 연방정부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대행기관들을 통해서 집행된다.

2.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들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위태롭게 하는 불이행 또는 변절은, **아들**의 법정에서는 결코 판결 받지 않으며; 그런 오해는 즉시 연방우주 법정으로 이관된다.

3. 지방우주의 --지역 체계 같은-- 어느 구성 부분이든지, 지방 창조계에서 영적으로 격리된 후에 다시 온전한 영적 상태의 교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연방우주의 최고 집회가 동의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문제에서는, **살빙톤** 법정이 최종적인 동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들의 결정과 선고에 대해 항소하거나 피할 길은 전혀 없다.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의 다툼이 불공평하게 판결 받는 경우도 때로 있을 수 있겠지만, 우주에서는 옹호와 신성한 공정성이 지배한다. 너희는 질서가 잘 잡힌 우주에서 살고 있으며, 곧 공정하게, 실로 자비롭게 취급받으리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8.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네바돈의 수도 **살빙톤**에는, 실제 입법기관{立法機關}이 없다. 우주 본부 세계들이 주로 판결에 관계한다. 지방우주의 입법 집회는 100개의 성좌 본부에 위치한다. 체계는 주로 그 지역 창조물의 행정 및 경영 업무에 관계한다. **체계 주권자**들과 그 동역자들은 성좌 통치자의 입법 명령을 실행하며, 지방우주의 고등법원의 사법 명령을 집행한다.

우주 본부에서는 진정한 입법 기능이 실행되지 않지만, **살빙톤**에서는 다양한 자문회의 및 연구회의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범위와 목적에

33:7.3 (372.7) As regards jurisdiction, the local universe courts are limited in the following matters:

33:7.4 (372.8) 1. The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is concerned with creation, evolution, maintenance, and ministry. The universe tribunals are, therefore, denied the right to pass upon those cases involving the question of eternal life and death. This has no reference to natural death as it obtains on Urantia, but if the question of the right of continued existence, life eternal, comes up for adjudication, it must be referred to the tribunals of Orvonton, and if decided adversely to the individual, all sentences of extinction are carried out upon the orders, and through the agencies, of the rulers of the supergovernment.

33:7.5 (372.9) 2. The default or defection of any of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which jeopardizes their status and authority as Sons is never adjudicated in the tribunals of a Son; such a misunderstanding would be immediately carried to the superuniverse courts.

33:7.6 (372.10) 3. The question of the readmission of any constituent part of a local universe — such as a local system — to the fellowship of full spiritual status in the local creation subsequent to spiritual isolation must be concurred in by the high assembly of the superuniverse.

33:7.7 (373.1) In all other matters the courts of Salvington are final and supreme. There is no appeal and no escape from their decisions and decrees.

33:7.8 (373.2) However unfairly human contentions may sometimes appear to be adjudicated on Urantia, in the universe justice and divine equity do prevail. You are living in a well-ordered universe, and sooner or later you may depend upon being dealt with justly, even mercifully.

8.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FUNCTIONS

33:8.1 (373.3)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there are no true legislative bodies.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re concerned largely with adjudication.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local universe are located on the headquarter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systems are chiefly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local creation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ir associates enforce the legislative mandates of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execute the judicial decrees of the high courts of the universe.

33:8.2 (373.4) While true legislation is not enacted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re do function on Salvington a variety of advisory and research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수행된다. 더러는 영구적이고; 더러는 그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해체된다.

지방우주의 **최고 협의회**는, 각 체계에서 세 명의 위원과, 각 성좌에서 일곱 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격리된 체계는 이 집회에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이 모든 협의에 참여하고 이를 연구하는 참관인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돼 있다.

최고 구속력을 갖는 100개의 협의회가 살빙톤에 위치해 있다. 이 협의회 의장들이 **가브리엘**의 직속 실무 내각을 구성한다.

고등 우주 자문 협의회의 모든 평결(評決)은, **살빙톤** 사법 기관 또는 성좌의 입법 집회로 이관된다. 이 고등 협의회는 자신의 권고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충고가 우주의 근본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면, 집행하는 판결을 **네바돈**의 법정이 내리지만; 그들의 충고가 지역 상황 또는 응급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면, 신중한 법령 제정을 위해서 성좌의 입법 집회에 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을 위해서 체계 권세자들에게 그것을 내려 보내야 한다. 이 고등 협의회는 실제로 우주의 최고 입법기관이지만, 법령을 제정하는 권한 없이, 그리고 집행하는 권력 없이 활동한다.

우리가 “법정”과 “집회”라는 말로 우주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이 진행사항들은 상응하는 이름이 내포하는, **유란시아**의 매우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활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assemblies, variously constituted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scope and purpose. Some are permanent; others disband upon the accomplishment of their objective.

33:8.3 (373.5) *The supreme council* of the local universe is made up of three members from each system and seven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stellation. Systems in isolation do not have representation in this assembly, but they are permitted to send observers who attend and study all its deliberations.

33:8.4 (373.6) *The one hundred councils of supreme sanction* are also situated on Salvington. The presidents of these councils constitute the immediate working cabinet of Gabriel.

33:8.5 (373.7) All findings of the high universe advisory councils are referred either to the Salvington judicial bodies or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high councils are without authority or power to enforce their recommendations. If their advice is founded on the fundamental laws of the universe, then will the Nebadon courts issue rulings of execution; but if their recommendations have to do with local or emergency conditions, they must pass down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 for deliberative enactment and then to the system authorities for execution. These high councils are, in reality, the universe superlegislatures, but they function without the authority of enactment and without the power of execution.

33:8.6 (373.8) While we speak of universe administration in terms of “courts” and “assemblie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se spiritual transaction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more primitive and material activities of Urantia which bear corresponding names.

33:8.7 (373.9) [Presented by the Chief of the Archangels of Nebadon.]

제34편. 지방우주 어머니 영

⇨ 033

유랜시아 책

035 ⇨

II 부. 지방우주

제34편
지방우주 어머니 영

섹션

소개

1. 창조적 영의 인격화
2. 신성한 사역자의 본성
3.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
4. 지방우주 회로
5. 영의 사역
6. 사람 속에 있는 영
7. 영과 육신

소개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들을 인격화하면,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공간 영역으로 이 **창조주 아들**을 따라갈, 자신의 새롭고 독특한 대변자를 개별화하는데, 이 대변자는 처음에는 새로 기획한 우주를 물리적으로 조직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살피는 동안, **창조주 아들**의 동무가 된다.

창조적 영은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양쪽에 작용하며; **창조주 아들**도 그리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 경영에 협조하고 연합한다.

이 **딸 영**들은 **무한한 영**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보살핌의 업무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물리적 창조에서 **우주 아들**이 원형(元型)을 제공하고, 한편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의 물질화를 개시한다. **아들**은 동력 설계를 다루지만, **영**은 이 에너지 창조물을 물리적 실체로 변형시킨다. **무한한 영**의 이 초기 우주 현존을 한 인격자로서 묘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아들**에게 **영** 동역자는 개

PAPER 34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1. Personalization of the Creative Spirit
2. Nature of the Divine Minister
3. The Son and Spirit in Time and Space
4. The Local Universe Circuits
5. The Ministry of the Spirit
6. The Spirit in Man
7. The Spirit and the Flesh

INTRODUCTION

34:0.1 (374.1) WHEN a Creator Son is personalized by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n does the Infinite Spirit individualize a new and unique representation of himself to accompany this Creator Son to the realms of space, there to be his companion, first, in physical organization and, later, in creation and ministry to the creatures of the newly projected universe.

34:0.2 (374.2) A Creative Spirit reacts to both physical and spiritual realities; so does a Creator Son; and thus are they co-ordinate and associate in the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of time and space.

34:0.3 (374.3) These Daughter Spirits are of the essence of the Infinite Spirit, but they cannot function in the work of physical creation and spiritual ministry simultaneously. In physical creation the Universe Son provides the pattern while the Universe Spirit initiates the materialization of physical realities. The Son operates in the power designs, but the Spirit transforms these energy creations into physical substances. Although it is somewhat difficult to

인적이며 항상 별도의 개체로서 작용해 왔다.

portray this early univers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as a person, nevertheless, to the Creator Son the Spirit associate is personal and has always functioned as a distinct individual.

1. 창조적 영의 인격화

별들과 행성 다발의 물리적 조직이 완성되고, 연방우주 동력 중심들이 에너지 회로를 설립한 후에, **무한한 영**이 지방우주에서 창조력을 집중함으로써 운용되고 그 지휘 하에 운용되는 대행기관들이 이 예비 창조 업무를 마친 뒤에, 새롭게 조직된 우주에 그 다음으로 생명체를 설계할 것이라는 **미가엘 아들**의 선언이 반포된다. 이렇게 공표된 의도를 **낙원**이 인지함에 따라서, **낙원 삼위일체**의 승인 반응이 나타나며, 그 뒤에, 이 새로운 창조가 준비되고 있는 그 연방우주의 **으뜸 영**이, **신격**들의 영적 광채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다른 **으뜸 영**들이 **낙원 신격**들의 이 중앙 거점(據點) 근처로 접근하며, 그 뒤를 이어, **신격**에게 포용된 **으뜸 영**이 그의 동료들에게 인지되도록 떠오르게 될 때, “원초적 폭발”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하나의 엄청난 영적 섬광(閃光), 즉 관련된 연방우주 본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현상이며; 거의 이해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형태화와 동시에, 관계된 지방우주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적 영(靈) 현존과 능력의 본성에 하나의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 **낙원** 현상에 반응하여, 그 **창조주 아들** 바로 앞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인격있는 대변자가 즉시 인격화된다. 그가 바로 **신성한 사역자**다. 그 **창조주 아들**의 개별화된 **창조적 영** 도우미는, 그의 개인적 창조 동역자,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됐다.

공동 창조주가 이렇게 새롭게 인격적으로 분리됨으로부터, 그리고 그 분리됨을 통해서, 그 지방우주의 모든 세계와 존재를 보급하도록 정해진 영(靈) 능력과 영적 영향력의 확정된 흐름 그리고 규정된 회로들이 생겨난다. 실제로, 이 새로운 인격있는 현존은, **아들**이 물리적 우주를 조직하던 초기 작업을 할 때 덜 인격있고 이전에 존재했던, 그의 동역자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

엄청난 극적사건을 단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이 중대한 진행사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헤아릴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으며; 그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낙원 삼위일체**의 품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1. PERSONALIZATION OF THE CREATIVE SPIRIT

34:1.1 (374.4)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a starry and planetary clust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nergy circuits by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subsequent to this preliminary work of creation by the agencies of the Infinite Spirit, operating through, and under the direction of, his local universe creative focalization, there goes forth the proclamation of the Michael Son that life is next to be projected in the newly organized universe. Upon the Paradise recognition of this declaration of intention, there occurs a reaction of approval in the Paradise Trinity, followed by the disappearance in the spiritual shining of the Deities of the Master Spirit in whose superuniverse this new creation is organizing. Meanwhile the other Master Spirits draw near this central lodgment of the Paradise Deities, and subsequently, when the Deity-embraced Master Spirit emerges to the recognition of his fellows, there occurs what is known as a “primary eruption.” This is a tremendous spiritual flash, a phenomenon clearly discernible as far away a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and simultaneously with this little-understood Trinity manifestation there occurs a marked change in the nature of the creative spirit presence and power of the Infinite Spirit resident in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In response to these Paradise phenomena there immediately personalizes, in the very presence of the Creator Son, a new persona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is is the Divine Minister. The individualized Creative Spirit helper of the Creator Son has become his personal creative associate,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34:1.2 (375.1) From and through this new personal segregation of the Conjoint Creator there proceed the established currents and the ordained circuits of spirit power and spiritual influence destined to pervade all the worlds and beings of that local universe. In reality, this new and personal presence is but a transformation of the pre-existent and less personal associate of the Son in his earlier work of physical universe organization.

34:1.3 (375.2) This is the relation of a stupendous drama in few words, but it represents about all that can be told regarding these momentous transactions. They are instantaneous, inscrutable, and incomprehensible; the secret of the technique and procedure resides in the bosom of the

한 가지는:순전히 물리적인 창조 또는 조직이 이뤄지는 동안, 지방우주에서 영 현존이 **낙원의 무한한 영**의 영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지 못했으며; 반면에, 감독하는 **으뜸 영**이 **하나님**들의 신비스런 포용으로부터 다시 나타난 후에,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섬광이 일어난 후에, **무한한 영**의 지방우주 형태화가, **무한한 영**과 변화 접촉을 이루고 있었던 그 **으뜸 영**의 인격있는 유사형태로, 갑자기 완전하게 바뀐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천문{天文} 관할권을 갖는 연방우주의 **으뜸 영**의 인격있는 본성으로 물든, 인격있는 본성을 그렇게 획득한다.

무한한 영이 이렇게 인격화된 현존인, 지방우주의 **창조적 어머니 영**은, **사타니아**에서 **신성한 사역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용적 의미와 영적 목적에서, **신격**의 이 형태화는, 신성한 개체, 즉 영 인격자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 우리 지방우주에서 바로 **제3 근원 및 중심**이 이렇게 집중하고 인격화함을 통해서, **영**이 나중에 **창조주 아들**에게 그토록 완전히 종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에 관해서,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에게 위탁됐다”고 표현했다.

2. 신성한 사역자의 본성

신성한 사역자는, 생명체를 창조하던 시기에 현저한 인격 변질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한 인격체로서 활동하고, 지방 창조계의 광대한 직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서 **창조주 아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협동한다.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되기 이전 시대에는, 심지어 **무한한 영**의 이 대표단조차 많은 우주 존재 유형에게 전적으로 개인적이지 않은 듯이 보일지도 모르나;**창조주 아들**이 **으뜸 아들**이라는 주권적 권세자로 승진된 후에, **창조적 어머니 영**은 인격있는 특성들이 증대되어, 모든 접촉하는 개체{個體}에게 개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창조주 아들과 아주 초기에 연합할 때부터, **우주 영**은 **무한한 영**의 물리적 통제 속성들 전체를 지니는데, 충분한 반인력{反引力} 재능도 포함한다. **우주 영**은 인격있는 신분을 달성함에 따라서, **무한한 영**이 직접 현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로, 지방우주에서 정신 인력에 대한 온전하고 완성된 통제력을 행사한다.

신성한 사역자는, **낙원**의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에 구현된 것과 같은, **무한한 영**의 본성 및 선천적 특질에 따라, 각 지방우주에서 작용한다. 모든 **우주 영**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균일한 동시

Paradise Trinity. Of only one thing are we certain: The Spirit presence in the local universe during the time of purely physical creation or organization was incompletely differentiated from the spirit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whereas, after the reappearance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from the secret embrace of the Gods and following the flash of spiritual energy,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uddenly and completely changes to the personal likeness of that Master Spirit who was in transmuting liaison with the Infinite Spirit.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us acquires a personal nature tinged by that of the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of astronomic jurisdiction.

34:1.4 (375.3) This personalized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 Creative Mother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is known in Satania as the Divine Minister.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spiritual purposes this manifestation of Deity is a divine individual, a spirit person. And she is so recognized and regarded by the Creator Son. It is through this loc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our local universe that the Spirit could subsequently become so fully subject to the Creator Son that of this Son it was truly said,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intrusted to him.”

2. NATURE OF THE DIVINE MINISTER

34:2.1 (375.4) Having undergone marked personality metamorphosis at the time of life creation, the Divine Minister thereafter functions as a person and co-operates in a very personal manner with the Creator Son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xtensive affairs of their local creation. To many universe types of being, even this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may not appear to be wholly personal during the ages preceding the final Michael bestowal; but subsequent to the elevation of the Creator Son to the sovereign authority of a Master Son, the Creative Mother Spirit becomes so augmented in personal qualities as to be personally recognized by all contacting individuals.

34:2.2 (375.5) From the earliest association with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Spirit possesses all the physical-control attributes of the Infinite Spirit, including the full endowment of antigravity. Upon the attainment of personal status the Universe Spirit exerts just as full and complete control of mind gravity, in the local universe, as would the Infinite Spirit if personally present.

34:2.3 (375.6) In each local universe the Divine Ministe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Infinite Spirit as embodied in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While there is a basic uniformity of

에, 기능의 다양성도 있는데,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을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기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연방우주에서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다양한 기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들은 모든 본질적인 영적 속성에서 동일한데, 연방우주의 차이에는 상관없이, 똑같이 영적이고 전적으로 신성하다.

창조적 영은, **창조주 아들**과 공동책임을 지고 그 세계들의 피조물을 산출하며, 이 창조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생명은 **창조적 영**의 작용을 통하여 보살핌을 받고 유지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셨고, 그들이 창조됐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창조적 어머니 영은, 지성 피조물이 있는 우주를 창조할 때, 처음에는 완전한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아들**과 협력하여 **빛나는 새벽별**을 산출한다. 그 후에, 위로는 **멜기세덱**부터 아래로는 그 영역의 필사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물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후손은 행성들에서 창조된 존재 계층에 점차 접근한다. 필사 피조물이 나중에 진화할 경우에 **생명 운반자 아들**들이 물리적 육체를 제공하는데, 그 영역에서 조직된 기존 물질로부터 만들어내며, 한편 **우주 영**은 “생명의 호흡”을 기부한다.

광우주 가운데 일곱째 지역이 여러 면에서 볼 때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문제에 생각이 깊은 탐구자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굉장히 잘 균형 잡힌 창조물이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오르본톤**이 이렇게 고도로 균형 잡히리라고 우리가 예견하는 것은, 이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이 높은 곳의 **으뜸 영**들의 우두머리이고, 영원한 세 **신격** 전부의 특징과 성품이 균형 잡히고 합동해서 완전히 조정된 모습을 구현하는 영 지성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구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리고 뒤떨어졌지만, 영원한 미래 시대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

영원한 아들뿐 아니라 **무한한 영**도, 시간과 공간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 대부분은 영향을 받는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널리 퍼지며 영원성 궤도에 깃든다. 그럼에도, 시간세계의 자녀들과 친히 접촉할 때,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심히 고려하지 않더라도, 시간 요소들은

character in all Universe Spirits, there is also a diversity of function, determined by their origin throug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is differential of origin accounts for the diverse techniques in the functio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in different superuniverses. But in all essential spiritual attributes these Spirits are identical, equally spiritual and wholly divine, irrespective of superuniverse differentiation.

34:2.4 (376.1) The Creative Spirit is coresponsible with the Creator Son in producing the creatures of the worlds and never fails the Son in all efforts to uphold and conserve these creations. Life is ministered and maintained through the agency of the Creative Spirit. “You send forth your Spirit, and they are created. You renew the face of the earth.”

34:2.5 (376.2) In the creation of a universe of intelligent creatures the Creative Mother Spirit functions first in the sphere of universe perfection, collaborating with the Son in the production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ubsequently the offspring of the Spirit increasingly approach the order of created beings on the planets, even as the Sons grade downward from the Melchizedeks to the Material Sons, who actually contact with the mortals of the realms. In the later evolution of mortal creatures the Life Carrier Sons provide the physical body, fabricated out of the existing organized material of the realm, while the Universe Spirit contributes the “breath of life.”

34:2.6 (376.3) While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may, in many respects, be tardy in development, thoughtful students of our problems look forward to the evolution of an extraordinarily well-balanced creation in the ages to come. We predict this high degree of symmetry in Orvonton because the presiding Spirit of this superuniverse is the chief of the Master Spirits on high, being a spirit intelligence embodying the balanced union and perfect co-ordination of the traits and character of all three of the eternal Deities. We are tardy and backward in comparison with other sectors, but there undoubtedly awaits us a transcendent development and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sometime in the eternal ages of the future.

3. THE SON AND SPIRIT IN TIME AND SPACE

34:3.1 (376.4) Neither the Eternal Son nor the Infinite Spirit is limited or conditioned by either time or space, but most of their offspring are.

34:3.2 (376.5) The Infinite Spirit pervades all space and indwells the circle of eternity. Still, in their personal contact with the children of tim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must often reckon

종종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 정신 사역이 공간을 무시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를 조정하는 동안에는 시간 지연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단독 사자**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실제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간과 무관하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실체들이 있다.

창조적 영은 인격적 특권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과 무관하지만,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 성좌 또는 체계 본부에서는 그런 **우주 영**의 특화된 인격있는 현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지방우주 전체에 두루 동일하게 널리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세계에 글자 그대로 몸소 현존한다.

창조적 영은 시간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만, 우주 사역에서 언제나 제한 받는다. **창조주 아들**들은 자신의 우주 전반에 걸쳐서 즉시 행동하지만, **창조적 영**은, **우주 아들**의 인격적 특권을 의식적(意識的)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용할 때 외에는, 보편적 정신 사역에서 시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창조적 영**은, 우주 반사성이라는 신비한 기능에 협조할 때뿐만 아니라, 순전한 영으로 작용할 때에도,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가 시간과 공간 양쪽에 상관없이 작동하더라도, **창조주 아들**의 모든 기능은 공간의 제한조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진화 세계의 진행사항들을 제외하면, 이 **미가엘 아들**은 비교적 시간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듯하다. **창조주 아들**은 시간으로 인해서는 방해받지 않지만, 공간으로 인해서는 제한되며; 동시에 두 장소에 몸소 있을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고, 연방우주에서는 반사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아들**과 직접 교통한다.

신성한 사역자는 **창조주 아들**의 이해심 있는 도우미이고, 공간에 관한 그의 선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하도록 해주는데, 이 두 존재가 경영상 합동하여 작용할 때, 자기 지방 창조물의 경계 내에서 시간 및 공간에 실제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우주 전역에서 실제로 관찰된 바와 같이,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은, 대개 시간과 공간 양쪽에 상관없이 활동하는데, 상대방의 시간 해방과 공간 해방을 각각 항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절대 존재들만이, 절대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 양쪽에 무관하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존재에게 종속된 인격자들 대부분은 시간과 공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다.

with temporal elements, though not so much with space. Many mind ministries ignore space but suffer a time lag in effecting co-ordination of diverse levels of universe reality. A Solitary Messenger is virtually independent of space except that time is actually required in traveling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and there are similar entities unknown to you.

34:3.3 (376.6) In personal prerogatives a Creative Spirit is wholly and entirely independent of space, but not of time. There is no specialized personal presence of such a Universe Spirit on either the constellation or system headquarters. She is equally and diffusely present throughout her entire local universe and is, therefore, just as literally and personally present on one world as on any other.

34:3.4 (376.7) Only as regards the element of time is a Creative Spirit ever limited in her universe ministrations. A Creator Son acts instantaneously throughout his universe; but the Creative Spirit must reckon with time in the ministration of the universal mind except as she consciously and designedly avails herself of the personal prerogatives of the Universe Son. In pure-spirit function the Creative Spirit also acts independently of time as well as in her collaboration with the mysterious function of universe reflectivity.

34:3.5 (377.1) Though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operates independently of both time and space, all functions of the Creator Sons are not exempt from space limitations. If the transacti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excepted, these Michael Sons seem to be able to operate relatively independent of time. A Creator Son is not handicapped by time, but he is conditioned by space; he cannot personally be in two places at the same time. Michael of Nebadon acts timelessly within his own universe and by reflectivity practically so in the superuniverse. He communicates timelessly with the Eternal Son directly.

34:3.6 (377.2) The Divine Minister is the understanding helper of the Creator Son, enabling him to overcome and atone for his inherent limitations regarding space, for when these two function in administrative union, they are practically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local creation. Therefore, as practically observed throughout a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usually function independently of both time and space since there is always available to each the time and the space liberation of the other.

34:3.7 (377.3) Only absolute beings ar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in the absolute sense. The majority of the subordinate persons of both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subject to both time and space.

창조적 영이 “공간을 의식(意識)하게” 될 때, 그는 경계가 정해진 “공간 범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준비를 갖추는데, 이것은 그를 제한시키는 다른 모든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그 안에 공간 제약이 없는 어떤 영역이다. 누구든지 오직 자신이 의식하는 영역 내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34:3.8 (377.4) When a Creative Spirit becomes “space conscious,” she is preparing to recognize a circumscribed “space domain” as hers, a realm in which to be space free in contradistinction to all other space by which she would be conditioned. One is free to choose and act only within the realm of one’s consciousness.

4. 지방우주 회로

네바돈 지방우주에는 별개의 세 영(靈) 회로가 있다:

1. **창조주 아들**이 증여하는 영, 즉 **위로자**, **진리의 영**.

2. **신성한 사역자**의 영 회로, 즉 **거룩한 영**.

3. 지성체를_섬기는 회로, 다소 통합된 활동이지만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다양한 작용을 포함한다.

창조주 아들들은 우주에 현존하는 영을 부여받는데,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이 가진 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데, 증여된 **아들**이 한 구체의 영적 소유권을 받은 후에 그런 세계에 쏟아 붓는다. 증여된 이 **위로자**는, 지방우주에서 진리가 의인화 된 **그분**을 향하도록 모든 진리 탐구자를 언제든지 이끄는 영적 힘이다. 이 영은 **창조주 아들**의 내재적 재능이며, 광우주의 주요 회로들이 **낙원 신격**들의 인격 현존으로부터 파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나타난다.

창조주 아들은 오고 갈 수 있으며; 그의 몸소 현존하심은 지방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진리의 영**은 방해받지 않고 활동하는데, 신성한 이 현존은 **창조주 아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지만, **신성한 사역자**의 인격자 속에 기능적으로 중심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방우주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의 영은 **아들**이 몸소 현존하심과 상관없이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작용하지만, **우주 어머니 영**의 인격있는 영은 그렇지 않다. **신성한 사역자**의 **거룩한 영**은, 그 몸소 현존하심이 **살빙톤**에서 떠나야만 될 때에는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사역자**의 영 현존은,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런 사실이, **창조주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인격있는 영향력, 즉 **거룩한 영**뿐 아니라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焦點)과 중심으로서 행동한다.

4. THE LOCAL UNIVERSE CIRCUITS

34:4.1 (377.5) There are three distinct spirit circuits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34:4.2 (377.6) 1. The bestowal spirit of the Creator Son, the Comforter, the Spirit of Truth.

34:4.3 (377.7) 2. The spirit circuit of the Divine Minister, the Holy Spirit.

34:4.4 (377.8) 3. The intelligence-ministry circuit, including the more or less unified activities but diverse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34:4.5 (377.9) The Creator Sons are endowed with a spirit of universe presence in many ways analogous to that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is is the Spirit of Truth which is poured out upon a world by a bestowal Son after he receives spiritual title to such a sphere. This bestowed Comforter is the spiritual force which ever draws all truth seekers towards Him who is the personification of truth in the local universe. This spirit is an inherent endowment of the Creator Son, emerging from his divine nature just as the master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are derived from the personality presences of the Paradise Deities.

34:4.6 (377.10) The Creator Son may come and go; his personal presence may be in the local universe or elsewhere; yet the Spirit of Truth functions undisturbed, for this divine presence, while derived from the personality of the Creator Son, is functionally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Divine Minister.

34:4.7 (378.1) The Universe Mother Spirit, however, never leaves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world.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may and does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Son, but not so with her personal spirit. The Holy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would become nonfunctional if her personal presence should be removed from Salvington. Her spirit presence seems to be fixed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 and it is this very fact that enables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to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whereabouts of the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acts as the universe focus and center of the Spirit of Truth as well as of her own personal influence, the Holy Spirit.

창조주 아버지_아들과 창조적 어머니 영, 이 두 분은 지방우주 자녀의 정신 자질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창조적 영**은 자신이 인격적 특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정신을 증여하지 않는다.

지방우주에서 진화를 초월하는 인격체 계층들은, 연방우주의 정신 원형{原型}에서 나온 지방우주 유형을 부여받는다. 진화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 및 준인간{準人間} 계층들은, 정신을 돌보는 보조 영{靈} 유형을 부여받는다.

일곱 보조{補助} 정신_영은, 지방우주의 **신성한 사역자**의 창조물이다. 이 정신_영들은 성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능력 면에서는 다양하며, **어머니 창조주**와 구별된 인격체들로서는 도저히 간주될 수 없지만, 모두가 **우주 영**의 본성을 똑같이 띤다. 일곱 보조체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 **지혜**의 기질(氣質), **경배**의 기질, **조언**의 기질, **지식**의 기질, **용기**의 기질, **이해**의 기질, 및 --신속하게 감지하는-- **직관**의 기질.

이들은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상징으로 봤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정신_영을 둘러싸는 24파수꾼의 자리는 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모습이 혼동됐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 수도{首都}에 속한다. 24장로의 자리는, **예루셈**, 즉 인간 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너희 지역 체계의 본부에 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왔다”는 것은--곧 지역 체계들을 향한 우주 방송은-- **살빙톤**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지방우주의 방향지시 통제 피조물, 즉 본부 세계의 살아있는 나침반들을 봤다. **네바돈**에 있는 이 방향지시 통제를 **살빙톤**의 네 통제 피조물이 유지하는데, 그들은 우주 흐름에 대해 작동하고, 첫째로 활약하는 정신_영, 즉 “신속한 이해”의 기질인, 직관 보조체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네 피조물에 대한--소위 짐승들에 대한-- 설명은 유감스럽게 망쳐진 것이었으며; 그들은 견줄 데 없는 아름다움과 절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나침반의 네 지점은, **네바돈**의 생명체 안에 보편적이고 내재적이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이런 방향지시 흐름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하는 신체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피조물 창조는, 우주를 통해서 각 행성에 이르기까지 복제되는데, 그 세계들의 자력{磁力}과 관련되어, 이 방향지시 세포들이 북쪽과 남쪽을 언제든지 가리키는, 동물 유기체 속의 극히 미세한 조직체 집단을 그렇게 활성화시킨다. 그리하여 방위 감각은, 우

34:4.8 (378.2) The Creator Father-Son and the Creative Mother Spirit both contribute variously to the mind endowment of their local universe children. But the Creative Spirit does not bestow mind until she is endowed with personal prerogatives.

34:4.9 (378.3) The superevolutionary orders of personality in a local universe are endowed with the local universe type of the superuniverse pattern of mind. The human and the subhuman orders of evolutionary life are endowed with the adjutant spirit types of mind ministration.

34:4.10 (378.4)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the creation of the Divine Minister of a local universe. These mind-spirits are similar in character but diverse in power, and all partake alike of the nature of the Universe Spirit, although they are hardly regarded as personalities apart from their Mother Creator. The seven adjutants have been given the following names: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worship,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knowledge, the spirit of courage, the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intuition — of quick perception.

34:4.11 (378.5) These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like lamps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the prophet saw in the symbols of vision. But he did not see the seats of the four and twenty sentinels about these seven adjutant mind-spirits. This record represents the confusion of two presentations, one pertaining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the other to the system capital. The seats of the four and twenty elders are on Jerus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34:4.12 (378.6) But it was of Salvington that John wrote: “And out of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 the universe broadcasts to the local systems. He also envisaged the directional control creatures of the local universe, the living compasses of the headquarters world. This directional control in Nebadon is maintained by the four control creatures of Salvington, who operate over the universe currents and are ably assisted by the first functioning mind-spirit, the adjutant of intuition, the spirit of “quick understanding.” But the description of these four creatures — called beasts — has been sadly marred; they are of unparalleled beauty and exquisite form.

34:4.13 (378.7) The four points of the compass are universal and inherent in the life of Nebadon. All living creatures possess bodily units which are sensitive and responsive to these directional currents. These creature creations are duplicated on down through the universe to the individual planets and, in conjunction with the magnetic forces of the worlds, so activate the hosts of microscopic bodies in the animal organism that

주의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영구히 고정돼 있다. 인류가 의식할 수 있는 소유물로서, 이 감각이 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이 기관들은 본 문서가 기록될 무렵에 처음으로 **유란시아**에서 관찰됐다.

5. 영의 사역

신성한 사역자는, 생명을 조직하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과제에서, **창조주 아들**의 일곱 번째 증여가 있기 전까지 **창조주 아들**과 협동하며, 그 다음에, 그가 우주의 완전한 주권자로 승진된 후에는, 세상을 보살피고 행성을 진보시키는 그 다음 업무에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증여한 성과, 계속 협력한다.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영**은 진화로 진보시키는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영역의 생명 없는 물질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식물 생명을 증여하고, 다음에는 동물 유기체를, 그 다음에는 첫 인간 실존 계층을 증여하며; 앞에 있었던 각각의 수여는, 최초의 원시적인 단계로부터,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행성 생명체의 진화 잠재력이 더 드러나도록 기여한다. **영**의 이런 수고는, 약속된 영들인 일곱 보조체를 통해서 주로 수행되는데, 이 보조체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영_정신이며, 늘 연합하여 사람의 인종들을 높은 관념과 영적 이상(理想)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필사적 사람은, 진화 피조물의 순전히 동물적인 정신이 경배 및 지혜 보조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정신과 관련해서 베푸는 **영**의 사역을 처음 체험한다. 여섯째 및 일곱째 보조체의 이런 사역은, 정신 진화가 영적 사역의 문지방을 넘어갔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배_기능과 지혜_기능이 있는 그런 정신들은, **신성한 사역자**의 영적 회로에 즉각 포함된다.

이렇게 정신이 **거룩한 영**의 보살핌을 받게 될 때, 그 정신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곤 사교 조율사**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정신이 **사교 조율사**를 받을 준비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은, 증여 **아들이** 행성 사역을 모든 필사자에게 베풀기 위해 **진리의 영**을 해방시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사역자**의 영 현존과 하나가 돼서 일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촉하는 영은, 그 세계들을 두루 맴돌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정신을 영적으로 밝히기 위해, 상승하는 피조물 인종들의 혼에 영감을 주기 위해, 그리고 신성한 운명이라는 **낙원** 목표를 언제든지 향하도록 진화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시도한다.

these direction cells ever point north and south. Thus is the sense of orientation forever fixed in the living beings of the universe. This sense is not wholly wanting as a conscious possession by mankind. These bodies were first observed on Urantia about the time of this narration.

5. THE MINISTRY OF THE SPIRIT

34:5.1 (379.1) The Divine Minister co-operates with the Creator Son in the formulation of life and the creation of new orders of beings up to the time of his seventh bestowal and, subsequently, after his elevation to the full sovereignty of the universe,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the Son and the Son's bestowed spirit in the further work of world ministry and planetary progression.

34:5.2 (379.2) On the inhabited worlds the Spirit begins the work of evolutionary progression, starting with the lifeless material of the realm, first endowing vegetable life, then the animal organisms, then the first orders of human existence; and each succeeding impartation contributes to the further unfolding of the evolutionary potential of planetary life from the initial and primitive stages to the appearance of will creatures. This labor of the Spirit is largely effected through the seven adjutants, the spirits of promise, the unifying and co-ordinating spirit-mind of the evolving planets, ever and unitedly leading the races of men towards higher ideas and spiritual ideals.

34:5.3 (379.3) Mortal man first experiences the ministry of the Spirit in conjunction with mind when the purely animal mind of evolutionary creatures develops reception capacity for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of wisdom. This ministry of the sixth and seventh adjutants indicates mind evolution crossing the threshold of spiritual ministry. And immediately are such minds of worship- and wisdom-function included in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 Divine Minister.

34:5.4 (379.4) When mind is thus endowed wit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it possesses the capacity fo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hoosing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 the Thought Adjuster. But it is not until a bestowal Son has liberated the Spirit of Truth for planetary ministry to all mortals that all normal minds are automatically prepared for the recep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Spirit of Truth works as one with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This dual spirit liaison hovers over the worlds, seeking to teach truth and to spiritually enlighten the minds of men, to inspire the souls of the creatures of the ascending races, and to lead the peoples dwelling on the evolutionary planets ever towards their Paradise goal of divine destiny.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음에도, 중여된 **아들**의 임무의 개요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들**의 이 영의 기능과 능력이 거의 전적으로 제한 받는다. **거룩한 영**은 인간의 태도에 얼마간 독립적이고, 사람의 의지의 결정과 협동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거룩한 영**의 사역은, 신성한 인도하심에 더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 필사자가 내적 삶의 성화(聖化)와 영화(靈化)를 이룰수록,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창조주 아버지_아들 또는 **창조적 어머니** 영에 속하는 영의 분리된 부분 또는 실재를,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직접 소유할 수 없으며; 이 사역은, **신비 관찰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 정신의 사고(思考) 중심과 접촉하지 않고 내주하지도 않는다. **사고 조율사**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이전 실체가 명확하게 개별화된 존재인데, 인간 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바로 그 정신에 실제로 내주하며, 그들은 언제든지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의 통합된 영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일한다.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은 **거룩한 영**으로서 현존하고,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은 **진리의 영**으로서 현존하며, 진화하는 필사자 안에 있거나 그와 함께 있는 **낙원 아버지의 조율사** 영의 현존은, 영적 재능과 사역이 균형 잡혔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신앙_사실을, 그런 필사자가 의식적으로 깨닫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6. 사람 속에 있는 영

인간거주 행성의 진화가 진행되고 행성 거주자들이 더 영성화 됨에 따라서, 그런 성숙된 인격체들이 부가적인 영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필사자가 정신 통제와 영 인지(認知)에서 진보할 때, 이런 복합적 영 사역은 기능적으로 점점 더 조화를 이루게 되며; **낙원 삼위일체**의 온갖사역과 점점 더 혼합되게 된다.

비록 **신성**이 복수(複數)로 형태화되더라도, **신격**은 인간 체험에서 단수(單數)이고 항상 하나다. 또한 인간이 체험하는 영적 사역도 복수가 아니다. 모든 영 영향은, 그 기원이 복수적임에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하나다. 이 영향들은 정말로 하나인데, 광우주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칠중 하나님**이 베푸는 영 사역이 있으며; 영의 이런 통합하는 사역을 피조물이 점점 더 인정하고 점점 잘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 사역은 그들의 체험 속에서 **지존자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

신성한 **영**이 영원한 영광의 고지(高地)로부터 일련의 긴 단계를 따라서 내려온 것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협력을 받아, 필사자

34:5.5 (379.5) Though the Spirit of Truth is poured out upon all flesh, this spirit of the Son is almost wholly limited in function and power by man's personal reception of that which constitutes the sum and substance of the mission of the bestowal Son. The Holy Spirit is partly independent of human attitude and partially conditioned by the decisions and co-operation of the will of man. Nevertheless,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becomes increasingly effective in the sanctification and spiritualization of the inner life of those mortals who the more fully obey the divine leadings.

34:5.6 (379.6) As individuals you do not personally possess a segregated portion or entity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Father-Son or the Creative Mother Spirit; these ministries do not contact with, nor indwell, the thinking centers of the individual's mind as do the Mystery Monitors. Thought Adjusters are definite individualizations of the prepersonal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indwelling the mortal mind as a very part of that mind, and they ever work in perfect harmony with the combined spirits of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34:5.7 (380.1)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Spirit of Truth of the Universe Son of the Eternal Son, and of the Adjuster-spirit of the Paradise Father in or with an evolutionary mortal, denotes symmetry of spiritual endowment and ministry and qualifies such a mortal consciously to realize the faith-fact of sonship with God.

6. THE SPIRIT IN MAN

34:6.1 (380.2) With the advancing evolution of an inhabited planet and the further spiritualization of its inhabitants, additional spiritual influences may be received by such mature personalities. As mortals progress in mind control and spirit perception, these multiple spirit ministries become more and more co-ordinate in function; they become increasingly blended with the overministry of the Paradise Trinity.

34:6.2 (380.3) Although Divinity may be plural in manifestation, in human experience Deity is singular, always one. Neither is spiritual ministry plural in human experience. Regardless of plurality of origin, all spirit influences are one in function. Indeed they are one, being the spirit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in and to th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and as creatures grow in appreciation of, and receptivity for, this unifying ministry of the spirit, it becomes in their experience the ministry of God the Supreme.

34:6.3 (380.4) From the heights of eternal glory the divine Spirit descends, by a long series of steps, to meet you as you are and where you are and then, in the partnership of faith, lovingly to embrace

에서 기원된 혼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겸손의 단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이며,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이 사명을 띠고 신성한 **영**이 원래 돌진해 나왔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 혼이 안전하게 고양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세력들은 그들 자신의 원래 수준을 반드시 추구하고 성취한다. 그들은 **영원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내주하는 **조물사**의 인도와 가르침을 지지했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 전부를 함께 데려가며, 그들은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이다.

신성한 **영**이, 사람의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섬김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능력과 성취는,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대로, **영**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룬다. 영적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인 수고는 상대적인 영적 고갈을 가져온다. 모든 상승 체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기{生氣}를 주는 이는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아무리 최고의 종교 교리라도, 죽어버린 이론은 인간 성품을 변형시키거나 필사자의 습성을 통제할 힘이 없다.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의 옛 선생들이 외쳤던 진리다: “오직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식에 숨을 불어넣고 정의의 공식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론적인 진리의 씨는 죽어있고, 최고의 도덕 개념은 효력이 없다.

내주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식한 자들은 **영**으로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주하신다.” 이 영이 너에게 부여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마다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필사자의 불만족으로 인한 강렬한 갈증을 예방하고, 영성화 되지 못한 인간 정신의 막연한 배고픔을 예방하는 것은, 신성한 **영**의 현존, 즉 생명의 물이다. 영의 자극을 받은 존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영적인 이 물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만족시키는 우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하게 물을 공급받는 그런 혼은, 물질 환경과는 거의 상관없이, 삶의 기쁨과 세상 실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았고 새롭게 됐으며, 도덕적으로 강화됐고 자질을 갖췄다.

각 필사자마다 그 속에는 이중{二重} 본성이 존재하는데: 동물적 경향의 유전성과, 영이 부여한 고상한 충동이 그것이다. 별개이고 상반되는 이 두 충동은, 네가 **유란시아**에 사는 짧은 생애 동안

the soul of mortal origin and to embark on the sure and certain retracement of those steps of condensation, never stopping until the evolutionary soul is safely exalted to the very heights of bliss from which the divine Spirit originally sallied forth on this mission of mercy and ministry.

34:6.4 (380.5) Spiritual forces unerringly seek and attain their own original levels. Having gone out from the Eternal, they are certain to return thereto, bringing with them all those children of time and space who have espoused the leading and teach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ose who have been truly “born of the Spirit,” the faith sons of God.

34:6.5 (380.6) The divine Spirit is the source of continual ministry and encouragement to the children of men. Your power and achievement is “according to his mercy, through the renewing of the Spirit.” Spiritual life, like physical energy, is consumed. Spiritual effort results in relative spiritual exhaustion. The whole ascendant experience is real as well as spiritual; therefore, it is truly written,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s.” “The Spirit gives life.”

34:6.6 (380.7) The dead theory of even the highest religious doctrines is powerless to transform human character or to control mortal behavior. What the world of today needs is the truth which your teacher of old declared: “Not in word only but also in power and in the Holy Spirit.” The seed of theoretical truth is dead, the highest moral concepts without effect, unless and until the divine Spirit breathes upon the forms of truth and quickens the formulas of righteousness.

34:6.7 (381.1) Those who have received and recognized the indwelling of God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It is not enough that this spirit be poured out upon you; the divine Spirit must dominate and control every phase of human experience.

34:6.8 (381.2) It is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the water of life, that prevents the consuming thirst of mortal discontent and that indescribable hunger of the unspiritualized human mind. Spirit-motivated beings “never thirst, for this spiritual water shall be in them a well of satisfaction springing up into life everlasting.” Such divinely watered souls are all but independent of material environment as regards the joys of living and the satisfactions of earthly existence. They are spiritually illuminated and refreshed, morally strengthened and endowed.

34:6.9 (381.3) In every mortal there exists a dual nature: the inheritance of animal tendencies and the high urge of spirit endowment. During the short life you live on Urantia, these two diverse and

에는 충분히 조정되기 어려우며;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통합될 수 없지만; 혼합된 영은, 너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의 인도에 육신이 점점 더 복종하도록, 너를 돕는 사역을 계속한다. 네가 물질 생애를 전부 살아야만 됴에도,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피할 수 없음에도, 목적과 이상에서는 점점 더 동물적 본성을 복종시키고 영의 지배를 받도록 힘을 얻는다. 너의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공모하고, 신성한 권능들이 정말로 동맹(同盟)하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물질의 속박과 유한세계의 장애물로부터 너를 마침내 구출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섬김의 목적은, “너의 속사람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권능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봉사의 완성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려고 첫 발을 내딛었음을 나타낼 뿐이며, 그 체험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영은 결코 몰아붙이지 않고, 오직 인도할 뿐이다. 너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영 수준을 성취하고 신성한 고지(高地)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목표에 당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아들신분을 얻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을 따라서, 신성한 영이 너희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사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기꺼이 하는 마음, 즉 지성적이고 유쾌하게 협동하는 걸음이어야 한다. 영의 지배는 결코 강압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한다고 해서 타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영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자유롭게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간 정신 안에는 신성한 접촉을 분명하게 의식함이, 그리고 영과 친교한다는 확신이 점차 깊어지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이 너의 영과(곧 **조울사**와) 함께 조만간 증언한다.” 바로 너의 **사고 조울사**가, 너와 **하나님**이 친족관계임을 이미 알려졌고, 그래서 그 기록은, 영이 너의 영에게가 아니라 “너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고 증언한다.

인간 생애를 영(靈)이 지배하고 있음을 의식(意識)하면, 영으로 인도되는 그런 필사자의 생애 반응에서 영의 특질이 곧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_참음, 친절, 선함, 신앙, 온유함, 및 절제이기 때문이다.” 영의_인도함을 받고 신성하게 조명 받는 그런 필사자는, 아직 고생하는 초라한 길을 걷고 세상에서 담당하는 임무를 인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동안, 영원한 생애의 빛이 다른 세계의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희미하게 깜박일 때, 그것을 이미 식별하기 시작했으며; 영감을 주고 위로하는 진리, 즉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는 진리의 실체를 이미 납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영으로 태어난 혼들은, 시험당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곤고함에 직면하는 동안, 신성한 영이 현

opposing urges can seldom be fully reconciled; they can hardly be harmonized and unified; but throughout your lifetime the combined Spirit ever ministers to assist you in subjecting the flesh more and more to the leading of the Spirit. Even though you must live your material life through, even though you cannot escape the body and its necessities, nonetheless, in purpose and ideals you are empowered increasingly to subject the animal nature to the mastery of the Spirit. There truly exists within you a conspiracy of spiritual forces, a confederation of divine powers, whose exclusive purpose is to effect your final deliverance from material bondage and finite handicaps.

34:6.10 (381.4) The purpose of all this ministration is, “That you may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 And all this represents but the preliminary steps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faith and service, that experience wherein you shall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for all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sons of God.”

34:6.11 (381.5) The Spirit never *drives*, only leads. If you are a willing learner, if you want to attain spirit levels and reach divine heights, if you sincerely desire to reach the eternal goal, then the divine Spirit will gently and lovingly lead you along the pathway of sonship and spiritual progress. Every step you take must be one of willingness, intelligent and cheerful co-operation. The domination of the Spirit is never tainted with coercion nor compromised by compulsion.

34:6.12 (381.6) And when such a life of spirit guidance is freely and intelligently accepted, there gradually develops within the human mind a positive consciousness of divine contact and assurance of spirit communion; sooner or later “the Spirit bears witness with your spirit (the Adjuster) that you are a child of God.” Already has your own Thought Adjuster told you of your kinship to God so that the record testifies that the Spirit bears witness “*with* your spirit,” not *to* your spirit.

34:6.13 (381.7) The consciousness of the spirit domination of a human life is presently attended by an increasing exhib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 in the life reactions of such a spirit-led mortal, “for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and temperance.” Such spirit-guided and divinely illuminated mortals, while they yet tread the lowly paths of toil and in human faithfulness perform the duties of their earthly assignments, have already begun to discern the lights of eternal life as they glimmer on the faraway shores of another world; already have they begun to comprehend the reality of that inspiring and comforting truth,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심성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기운을 얻는다.

7. 영과 육신

육신은, 동물에서 기원된 인종들에서 파생된 타고난 본성인데, 신성한 **영**의 열매를 저절로 맺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본성이 추가됨으로써 필사자 본성이 향상됐을 때, 즉 **아담**의 증여로 인해 **유란시아** 인종들이 상당히 증진됐듯이, 영이 성품 속에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 내주하는 **조물사**와 **진리의 영**이 협동하도록 그 길이 더 잘 준비된다. 너희가 이 영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위탁임을 완료하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영적 진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세계에 거주하는 진화하는 필사자는,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의 특징인, 영과 육체 사이의 심각한 모순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행성에서도, **아담** 이전{以前} 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경지의 실존으로부터, 더욱 지성적인 의미와 더 높은 영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수준들을 거쳐서 상승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상적인 세계의 필사자는, 자신의 육체적 본성과 영적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 실존 수준으로부터 영적 삶이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물질적 본성 및 영적 본성을 갖는 이 영역에서 **유란시아** 필사자가 겪는 격렬한 모순과 비교할 때, 이런 상승은 교육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행성의 점진적인 영적 성취에 대한 이 과제에서 도움을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영향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캘리개스차** 동란{動亂}은 전 세계적 혼돈을 야기했고, 질서 잡힌 사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도덕적 도움을, 그 다음 모든 세대에게서 박탈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재난은, 영적 열망에 더 많이 조화할 수 있었던 육체적 본성을 갖는 우세한 유형의 인종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아담**의 태만이었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영과 육신 사이의 그런 현저한 갈등을 겪어야만 되는데, 자신의 먼 조상이 **에덴**의 증여로 인해 더 충분하게 **아담**처럼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은, **유란시아**의 필사자 인종들이 더 자연스럽게 영에 반응하는 육체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Holy Spirit.” And throughout every trial and in the presence of every hardship, spirit-born souls are sustained by that hope which transcends all fear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all hearts by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7. THE SPIRIT AND THE FLESH

34:7.1 (382.1) The flesh, the inherent nature derived from the animal-origin races, does not naturally bear th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When the mortal nature has been upstepped by the addition of the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as the Urantia races were in a measure advanced by the bestowal of Adam, then is the way better prepared for the Spirit of Truth to co-operate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to bring forth the beautiful harvest of the character fruits of the spirit. If you do not reject this spirit, even though eternity may be required to fulfill the commission,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34:7.2 (382.2) Evolutionary mortals inhabiting normal worlds of spiritual progress do not experience the acute conflicts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which characterize the present-day Urantia races. But even on the most ideal planets, pre-Adamic man must put forth positive efforts to ascend from the purely animalistic plane of existence up through successive levels of increasingly intellectual meanings and higher spiritual values.

34:7.3 (382.3) The mortals of a normal world do not experience constant warfare between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natures.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limbing up from the animal levels of existence to the higher planes of spiritual living, but this ascent is more like undergoing an educational training when compared with the intense conflicts of Urantia mortals in this realm of the divergent material and spiritual natures.

34:7.4 (382.4) The Urantia peoples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a double deprivation of help in this task of progressive planetary spiritual attainment. The Caligastia upheaval precipitated world-wide confusion and robbed all subsequent generations of the moral assistance which a well-ordered society would have provided. But even more disastrous was the Adamic default in that it deprived the races of that superior type of physical nature which would have been more consonant with spiritual aspirations.

34:7.5 (382.5) Urantia mortals are compelled to undergo such marked struggling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because their remote ancestors were not more fully Adamized by the Edenic bestowal. It was the divine plan that the mortal races of Urantia should have had physical natures more naturally spirit responsive.

사람의 본성과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런 이중 재난에도, 오늘날 필사자들은 영(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런 분명한 투쟁을 덜 체험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개화되고 해방시키는 봉사를 함으로써, 육신이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로부터 비교적 벗어난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캘리개스차** 반역의 무서운 결과를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고,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필사자의 삶을 인류에게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운이, 동물적 삶의 법칙에서, 그리고 악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이, 육신, 심지어 너의 신앙조차 극복하는 승리다.”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태어난 남녀는, 가장 정상적인 세계, 즉 죄로 물든 적이 없고 반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에 거주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사자 본성과 갈등을 겪지 않는다. 신앙 아들은, 억제되지 않거나 정상이 아닌 육체적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지성적 수준에서 일하고 영적 경지에서 생활한다. 동물 존재의 정상적인 충동과 자연적인 욕망 및 육체적 본성의 자극은, 무식하거나, 잘못 가르침 받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세심한 인격자들의 정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영적 달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한 인생길을 시작했으며, 과제를 받아들이고 진격 명령을 받아들였으니, 인간의 건망증과 필사자의 번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리라는 의심이나 골치 아픈 혼동으로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상태와 위치에서 넘어지지도 의심하지도 말라, 어두운 매 순간마다, 전진하는 투쟁에서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진리의 영**이 항상 “이것이 그 길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 근무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34:7.6 (382.6) Notwithstanding this double disaster to man's nature and his environment, present-day mortals would experience less of this apparent warfare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if they would enter the spirit kingdom, wherein the faith sons of God enjoy comparative deliverance from the slave-bondage of the flesh in the enlightened and liberating service of wholehearted devotion to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Jesus showed mankind the new way of mortal living whereby human beings may very largely escape the dire consequences of the Caligastic rebellion and most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deprivations resulting from the Adamic default. “The spirit of the life of Christ Jesus has made us free from the law of animal living and the temptations of evil and sin.”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flesh, even your faith.”

34:7.7 (383.1) Those God-knowing men and women who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experience no more conflict with their mortal natures than do the inhabitants of the most normal of worlds, planets which have never been tainted with sin nor touched by rebellion. Faith sons work on intellectual levels and live on spiritual planes far above the conflicts produced by unrestrained or unnatural physical desires. The normal urges of animal beings and the natural appetites and impulses of the physical nature are not in conflict with even the highest spiritual attainment except in the minds of ignorant, mistaught, or unfortunately overconscientious persons.

34:7.8 (383.2) Having started out on the way of life everlasting, having accepted the assignment and received your orders to advance, do not fear the dangers of human forgetfulness and mortal inconstancy, do not be troubled with doubts of failure or by perplexing confusion, do not falter and question your status and standing, for in every dark hour, at every crossroad in the forward struggle, the Spirit of Truth will always speak, saying, “This is the way.”

34:7.9 (383.3)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ssigned to service on Urantia.]

제35편.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

⇨ 034

유랜시아 책

036 ⇨

II 부. 지방우주

제35편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

섹션

소개

1. 아버지 멜기세덱
2. 멜기세덱 아들
3. 멜기세덱 세계
4. 멜기세덱의 특별 업무
5. 보론다덱 아들
6. 성좌 아버지
7. 보론다덱 세계
8. 라노난덱 아들
9. 라노난덱 통치자
10. 라노난덱 세계

소개

앞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서 기원됐다. 그들은 우주의 영토를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자**들의 자녀다. 아들신분을 갖는 첫째 **낙원** 계층인 **창조주 아들**들 중에서, 우주 아버지이며 주권자인 오직 한 명의 **미가엘**이 **네바돈**에 있다. **낙원**의 아들신분을 갖는 둘째 계층에는 **아보날**, 즉 **집정관 아들**이 있는데, **네바돈**에는 할당된 숫자대로 -- 1,062명이 --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비교적 부족한 **그리스도**들”은 **창조주인 으뜸 아들**이 **유랜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행성에 자신을 증여할 때 효과적이고 전능{全能}하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셋째 계층은 지방우주에 등록되지 않으나, 나는 15,000 내지 20,000명의 **삼위일체 교사**{教師} **아들**이 **네바돈**에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기록에 등재된,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9,642명의 보좌관을 제외한 것이다. 이 **낙원 데이날**들은 재판관도 경영자도 아니며; 최고선생이다.

검토될 **아들**들의 유형은 지방우주에서 기원

PAPER 35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ather Melchizedek
2. The Melchizedek Sons
3. The Melchizedek Worlds
4. Special Work of the Melchizedeks
5. The Vorondadek Sons
6. The Constellation Fathers
7. The Vorondadek Worlds
8. The Lanonandek Sons
9. The Lanonandek Rulers
10. The Lanonandek Worlds

INTRODUCTION

35:0.1 (384.1) THE Sons of God previously introduced have had a Paradise origin. They are the offspring of the divine Rulers of the universal domains. Of the first Paradise order of sonship, the Creator Sons, there is in Nebadon only one, Michael, the universe father and sovereign. Of the second order of Paradise sonship, the Avonal or Magisterial Sons, Nebadon has its full quota — 1,062. And these “lesser Christs” are just as effective and all-powerful in their planetary bestowals as was the Creator and Master Son on Urantia. The third order, being of Trinity origin, do not register in a local universe, but I estimate there are in Nebadon between fifteen and twenty thousand Trinity Teacher Sons exclusive of 9,642 creature-trinitized assistants of record. These Paradise Daynals are neither magistrates nor administrators; they are superteachers.

35:0.2 (384.2) The types of Sons about to be

된 존재이며; 그들은 **낙원 창조주 아들**의 자녀이고, 서로 보완하는 **우주 어머니 영**과 다양하게 연합해서 태어난다. 다음의 지방우주 아들신분 계층이 본 문서에서 언급될 것이다:

1. **멜기세덱 아들**.
2. **보론다덱 아들**.
3. **라노난덱 아들**.
4. **생명 운반자 아들**.

세 아들신분 계층, 즉: **미가엘**, **아보날**, 및 **데이날**의 창조를 위해서, 삼중{三重} **낙원 신격**이 작용한다. 지방우주에서 이중{二重} **신격인 아들**과 **영**역시, 높은 세 계층, 즉: **멜기세덱**, **보론다덱**, 및 **라노난덱** 창조에 작용하며; 이런 삼중 형태화를 성취함으로써, 그들은 **생명 운반자**가 속하는 다재다능한 계층을 산출하는 일에, 그 다음 수준의 **칠중 하나님**과 협력한다. 이 존재들은 하강{下降}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분류되지만,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우주 생명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서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considered are of local universe origin; they are the offspring of a Paradise Creator Son in varied association with the complement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following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 35:0.3 (384.3) 1. Melchizedek Sons.
- 35:0.4 (384.4) 2. Vorondadek Sons.
- 35:0.5 (384.5) 3. Lanonandek Sons.
- 35:0.6 (384.6) 4. Life Carrier Sons.

35:0.7 (384.7) Triune Paradise Deity functions for the creation of three orders of sonship: the Michaels, the Avonals, and the Daynals. Dual Deity in the local universe, the Son and the Spirit, also functions in the creation of three high orders of Sons: the Melchizedeks, the Vorondadeks, and the Lanonandeks; and having achieved this threefold expression, they collaborate with the next level of God the Sevenfold in the production of the versatile order of Life Carriers. These beings are classified with the descending Sons of God, but they are a unique and original form of universe life. Their consideration will occupy the whole of the next paper.

1. 아버지 멜기세덱

주어진 우주의 신성한 목적과 창조 계획에 따라서, **빛나는 새벽별** 및 기타 경영 인격체들 같은, 개인적으로 협조하는 존재가 실존하게 된 후에, **창조주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지방우주 **딸인 창조적 영**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합동이 일어난다. 이 창조적 동업관계에서 발생되는 인격체 후손은 원본 **멜기세덱--곧 아버지 멜기세덱--**인데, 그는 나중에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과 협력해서, 그 이름을 가진 집단 전체를 실존하게 하는 독특한 존재다.

네바돈 우주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빛나는 새벽별**의 첫 행정 동역자로서 행동한다. **가브리엘**은 우주 정책에 더 많이 관여하고, **멜기세덱**은 실용적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 **가브리엘**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네바돈** 법정과 협의회를 주재하고,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응급을 요하는 위원회와 자문 기관을 주재한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은 **살빙톤**에서 동시에 같이 떠나는 경우가 결코 없는데, **가브리엘**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우두머리 행정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아버지 멜기세덱**과 연합해서, 표준시간으로 1,000년 기간 내에, 우리 우주의 **멜기세덱**들을 모두 창조했다. 그들 자체의 동료 가운데 하나가 협조 창조자로서 작용

1. THE FATHER MELCHIZEDEK

35:1.1 (384.4) After bringing into existence the beings of personal aid, such as the Bright and Morning Star and other administrative persona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divine purpose and creative plans of a given universe, there occurs a new form of creative union between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he local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The personality offspring resulting from this creative partnership is the original Melchizedek — the Father Melchizedek — that unique being who subsequently collaborates with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o bring into existence the entire group of that name.

35:1.2 (385.1)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Father Melchizedek acts as the first executive associate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Gabriel is occupied more with universe policies, Melchizedek with practical procedures. Gabriel presides over the regularly constituted tribunals and councils of Nebadon, Melchizedek over the special, extraordinary, and emergency commissions and advisory bodies.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are never away from Salvington at the same time, for in Gabriel's absence the Father Melchizedek functions as the chief executive of Nebadon.

35:1.3 (385.2) The Melchizedeks of our universe were all created within one millennial period of standard time by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in liaison with the Father Melchizedek. Being an

한 아들신분 계층이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구성되며, 그런 까닭에 숭고한 유형의 자체_정부 실현에 적합하다. 원본{原本} **멜기세덱**이 특정한 선천적 공동부모의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은 표준시간으로 7년에 해당하는 임기로, 그들 자체의 경영 우두머리를 정기적으로 선출하고, 그 외에는 스스로_규제하는 계층으로서 활동한다. 이 **아버지 멜기세덱**은, 자기 계층 가운데 특정한 개인들을 지명해서, 중간유한절대 세계들에 대해 특별한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지금까지 제시된 적이 없는 인간거주 행성 유형에 속한다.

멜기세덱들은, 연방우주 법정에 계류된 문제 앞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소환된 경우와, 때때로 발생되듯이, 같은 연방우주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에게 대변하는 특별한 대사{大使}로 지명된 경우 외에는, 지방우주 밖에서 광범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각 우주의 원본 또는 첫_태생 **멜기세덱**은, 이웃 우주들로, 또는 그의 계층의 관심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띠고 **낙원**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2. 멜기세덱 아들

멜기세덱들은, 필사자를 향상시키는 사역에서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즉 육신화 될 필요 없이 진화 인종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낮은 피조 생명체에 충분히 접근하는 신성한 **아들**들 중에서 첫 계층이다. 이 **아들**들은 하강하는 위대한 인격체 중에서 선천적으로 중간_지점에 있는데, 기원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성**{神性}과, 의지를 부여받은 가장 낮은 피조물 생명체 사이에서, 거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높고 신성한 수준의 살아있는 실존과, 진화 세계에 있는 심지어 물질적인 낮은 생명체 형태 사이에, 타고난 중간매개체가 된다. 스랍 계층, 즉 천사들은 **멜기세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며; 사실, 모든 형태의 지성 생명체는, 이 **아들**들이 이해심 많은 친구, 인정 많은 선생, 그리고 현명한 조언자임을 발견한다.

멜기세덱은 자치{自治}하는 계층이다. 독특한 이 집단에 관해서 우리는, 지방우주 존재 편에서 자체_결정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과 우연히 마주쳤고, 가장 높은 유형의 참된 자체_정부를 목격했다. 이 **아들**들은 자신의 집단과 고향_행성 경영을 위한 자체 기관뿐 아니라, 6개의 연합된 구체 및 그 종속 세계들을 위한 기관 역시 조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며; **오르본톤** 연방우주 전역에서,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한 번도 책임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들은 자체_정부를 열망하는 모든 우주 집단의 희망이며; **네바돈**의 모든 구체에게, 자체_정부의 원형{原型}이자 선생이다. 지성을 가진 모든 계층의 존재는, 위로는 상관으

order of sonship wherein one of their own number functioned as co-ordinate creator, Melchizedeks are in constitution partly of self-origin and therefore candidates for the realization of a supernal type of self-government. They periodically elect their own administrative chief for a term of seven years of standard time and otherwise function as a self-regulating order, though the original Melchizedek does exercise certain inherent coparental prerogatives. From time to time this Father Melchizedek designates certain individuals of his order to function as special Life Carriers to the midsonite worlds, a type of inhabited planet not heretofore revealed on Urantia.

35:1.4 (385.3) The Melchizedeks do not function extensively outside the local universe except when they are called as witnesses in matters pending before the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 and when designated special ambassadors, as they sometimes are, representing one universe to another in the same superuniverse. The original or first-born Melchizedek of each universe is always at liberty to journey to the neighboring universes or to Paradise on missions having to do with the interests and duties of his order.

2. THE MELCHIZEDEK SONS

35:2.1 (385.4) The Melchizedeks are the first order of divine Sons to approach sufficiently near the lower creature life to be able to function directly in the ministry of mortal uplift, to serve the evolutionary races without the necessity of incarnation. These Sons are naturally at the mid-point of the great personality descent, by origin being just about midway between the highest Divinity and the lowest creature life of will endowment. They thus become the natural intermediaries between the higher and divine levels of living existence and the lower, even the material, forms of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 seraphic orders, the angels, delight to work with the Melchizedeks; in fact, all forms of intelligent life find in these Sons understanding friends, sympathetic teachers, and wise counselors.

35:2.2 (385.5) The Melchizedeks are a self-governing order. With this unique group we encounter the first attempt at self-determination on the part of local universe beings and observe the highest type of true self-government. These Sons organize their own machinery for their group and home-planet administration, as well as that for the six associated spheres and their tributary worlds. And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y have never abused their prerogatives; not once throughout all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have these Melchizedek Sons ever betrayed their trust. They are the hope of every universe group which aspires to self-government; they are the pattern

로부터 아래로는 부하들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의 통치를 전심으로 찬양한다.

아들신분의 **멜기세덱** 계층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에서 최고 연장자 아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책임을 감당한다. 그들의 업무 대부분은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일상적이지만, 많은 부분이 자발적이고, 전부 자기가 좋아서 한다. 때때로 **살빙톤**에 모이는 특별한 집회 대다수는, **멜기세덱**들의 동의로 소집된다. 이 **아들**들은 자신이 출생한 우주를 자발적으로 순찰한다. 그들은 우주 정보에 전념하는 자율 조직체를 유지하는데, 그 영역의 일상적 경영에 관계되는 정규 대행기관들을 통해서 우주 본부로 올라오는 모든 정보에 상관없이, **창조주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참관인이며; 모든 계층의 지성 존재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받는다.

멜기세덱들은 그 영역에서 기동성 있고 자문하는 제심법정으로서 작용하며; 이 우주 **아들**들은 자문 위원회로서 봉사하기 위해,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조언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작은 집단을 이뤄서 그 세계들로 내려가며, 그렇게 해서 진화하는 영도의 직무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심각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주요 난관을 조정하는 일을 돕는다.

한 우주에서 이 만 **아들**들은 **빛나는 새벽별**의 최고 조력자로서 **창조주 아들**의 명령을 수행한다. 한 **멜기세덱**이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먼 세계로 갈 때, 특별한 그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자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빛나는 새벽별**의 온전한 권세를 지니고, 배정된 행성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특히 비교적 높은 어떤 **아들**이 그 영역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체의 경우에 적용된다.

창조주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는 생애를 위해서 진화 세계로 들어갈 때 혼자서 가지만; 그의 **낙원** 형제 가운데 하나인 **아보날 아들**이 증여될 때에는, 증여 사명의 성공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열두 명의 **멜기세덱** 후원자와 동행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을 향한 집정관 임무에서 **낙원 아보날**들을 지원하며, 이런 임무에서 **아보날 아들**이 필사자의 눈으로 식별(識別)될 수 있다면, **멜기세덱**들 역시 그렇게 나타난다.

행성의 영적 필요에서 그들이 사역하지 않는 국면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과 **낙원 아버지**에 최종으로 완전하게 인정받기까지, 진보

and the teachers of self-government to all the spheres of Nebadon. All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superiors from above and subordinates from below, are wholehearted in their praise of the government of the Melchizedeks.

35:2.3 (386.1) The Melchizedek order of sonship occupies the position, and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st son in a large family. Most of their work is regular and somewhat routine, but much of it is voluntary and altogether self-imposed. A majority of the special assemblies which, from time to time, convene on Salvington are called on motion of the Melchizedeks. On their own initiative these Sons patrol their native universe. They maintain an autonomous organization devoted to universe intelligence, making periodical reports to the Creator Son independent of all information coming up to universe headquarters through the regular agencies concerned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realm. They are by nature unprejudiced observers; they have the full confidence of all classes of intelligent beings.

35:2.4 (386.2) The Melchizedeks function as mobile and advisory review courts of the realms; these universe Sons go in small groups to the worlds to serve as advisory commissions, to take depositions, to receive suggestions, and to act as counselors, thus helping to compose the major difficulties and settle the serious differences which arise from time to time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domains.

35:2.5 (386.3) These eldest Sons of a universe are the chief aid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n carrying out the mandates of the Creator Son. When a Melchizedek goes to a remote world in the name of Gabriel, he may, for the purposes of that particular mission, be deputized in the name of the sender and in that event will appear on the planet of assignment with the full authority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Especially is this true on those spheres where a higher Son has not yet appeared in the likeness of the creatures of the realm.

35:2.6 (386.4) When a Creator Son enters upon the bestowal career on an evolutionary world, he goes alone; but when one of his Paradise brothers, an Avonal Son, enters upon a bestowal, he is accompanied by the Melchizedek supporters, twelve in number, who so efficiently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bestowal mission. They also support the Paradise Avonals on magisterial missions to the inhabited worlds, and in these assignments the Melchizedeks are visible to mortal eyes if the Avonal Son is also thus manifest.

35:2.7 (386.5) There is no phase of planetary spiritual need to which they do not minister. They are the teachers who so often win whole worlds of

된 생활을 하는 모든 세계를 매우 자주 설복시키는 선생이다.

멜기세덱들은 지혜에서 거의 완전하지만, 판단에서 오류가 전혀 없지는 않다. 행성 사명으로 고립되고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때로 사소한 문제에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감독관들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을 특정한 일을 하려고 선택한 적이 있다. 그런 판단 실책은, 그가 **살빙톤**에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멜기세덱**의 자격을 잃게 하며, 동료들과 불일치하도록 만든 부조화를 자신에게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침을 **창조주 아들** 앞에서 받으며; 그렇게 되면, 교정을 위한 휴식이 있는 다음에, 셋째 날이 지나면서 근무로 복귀된다. 그러나 **멜기세덱** 기능에서 이런 사소한 부적응은 **네바돈**에서 드물게 발생해 왔다.

이 **아들**들은 숫자가 증가하는 계층이 아니며; 각 지방우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고정돼 있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본부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숫자는 1,000만 명 이상이다.

3. 멜기세덱 세계

멜기세덱들은 우주 본부인 **살빙톤** 근처에서 그들 고유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이 구체는, 70개의 주요 구체로 이뤄진 **살빙톤** 회로를 조종하는 세계인데, 이 구체들은 각각, 특화된 활동에 배정된 여섯 개의 종속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기묘한 이 구체들은 --곧 70개의 주요 구체와 420개의 종속 구체는-- 흔히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불린다. **네바돈**에 속한 모든 성좌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살빙톤**에서 거주 신분을 획득하면서 490개 세계 전체에서 훈련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상승하는 자들의 교육은, **살빙톤** 성단의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겨우 한 국면에 해당될 뿐이다.

살빙톤 회로의 490개 구체는 10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 집단은 7개의 주요 구체와 42개의 종속 구체로 구성된다. 각각의 이 집단은, 우주 생명체의 주요 계층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전반적 감독을 받는다. 둘러싸고 있는 행성 행렬에서 안 내 세계와 그 다음 여섯 주요 구체를 포함하는 첫 집단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 **멜기세덱** 세계는 다음과 같다:

1. 안내{案內}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2. 물리적_생명체 학교와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이 있는 세계.
3. 모론시아 생명체의 세계.
4. 초기 영 생명체의 구체.

advanced life to the final and full recognition of the Creator Son and his Paradise Father.

35:2.8 (386.6) The Melchizedeks are well-nigh perfect in wisdom, but they are not infallible in judgment. When detached and alone on planetary missions, they have sometimes erred in minor matters, that is, they have elected to do certain things which their supervisors did not subsequently approve. Such an error of judgment temporarily disqualifies a Melchizedek until he goes to Salvington and, in audience with the Creator Son, receives that instruction which effectually purges him of the disharmony which caused disagreement with his fellows; and then, following the correctional rest, reinstatement to service ensues on the third day. But these minor misadaptations in Melchizedek function have rarely occurred in Nebadon.

35:2.9 (387.1) These Sons are not an increasing order; their number is stationary, although varying in each local universe. The number of Melchizedeks of record on their headquarters planet in Nebadon is upward of ten million.

3. THE MELCHIZEDEK WORLDS

35:3.1 (387.2) The Melchizedeks occupy a world of their own near Salvington, the universe headquarters. This sphere, by name Melchizedek, is the pilot world of the Salvington circuit of seventy primary spheres, each of which is encircled by six tributary spheres devoted to specialized activities. These marvelous spheres — seventy primaries and 420 tributaries — are often spoken of as the Melchizedek University. Ascending mortals from all the constellations of Nebadon pass through training on all 490 worlds in the acquirement of residential status on Salvington. But the education of ascenders is only one phase of the manifold activities taking place on the Salvington cluster of architectural spheres.

35:3.2 (387.3) The 490 spheres of the Salvington circuit are divided into ten groups, each containing seven primary and forty-two tributary spheres. Each of these groups i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some one of the major orders of universe life. The first group, embracing the pilot world and the next six primary spheres in the encircling planetary procession,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se Melchizedek worlds are:

- 35:3.3 (387.4) 1. The pilot world — the home world of the Melchizedek Sons.
- 35:3.4 (387.5) 2. The world of the physical-life schools and the laboratories of living energies.
- 35:3.5 (387.6) 3. The world of morontia life.
- 35:3.6 (387.7) 4. The sphere of initial spirit life.

5. 중간_영 생명체의 세계.

35:3.7 (387.8) 5. The world of mid-spirit life.

6. 진보하는 영 생명체의 구체.

35:3.8 (387.9) 6. The sphere of advancing spirit life.

7. 대등하게 최고로 자아를_실현하는 영토.

35:3.9 (387.10) 7. The domain of co-ordinate and supreme self-realization.

이 **멜기세덱** 구체들 각각의 여섯 종속 세계는, 연합된 주요 구체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에 전념한다.

35:3.10 (387.11) The six tributary worlds of each of these Melchizedek spheres are devoted to activities germane to the work of the associated primary sphere.

안내 세계, 즉 **멜기세덱** 구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고 영성화 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의 공동 회합 장소다. 상승자에게 이 세계는 아마 전체 **네바돈**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곳일 것이다. 성좌{星座} 훈련을 마친 모든 진화 필사자는 **멜기세덱** 구체에 착륙하게 돼있는데, 거기서 **살빙톤** 교육 체계의 훈련과 영진보 체제에 가입한다. 그리고 **낙원** 목적지에 도착된 후에도, 너희는 독특한 이 세계에서 사는 첫날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35:3.11 (387.12) The pilot world, the sphere *Melchizedek*, is the common meeting ground for all beings who are engaged in educating and spiritualizing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nd space. To an ascender this world is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place in all Nebadon. All evolutionary mortals who graduate from their constellation training are destined to land on Melchizedek, where they are initiated into the regime of the disciplines and spirit progression of the Salvington educational system. And never will you forget your reactions to the first day of life on this unique world, not even after you have reached your Paradise destination.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둘러싼 여섯 행성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멜기세덱** 세계에 주거지를 유지한다. 그리고 70개의 문화 세계, 즉 **살빙톤** 회로의 주요 구체들에 그들이 머무는 전체 기간에, 바로 이 방법이 적용된다.

35:3.12 (387.13) Ascending mortals maintain residence on the Melchizedek world while pursuing their training on the six encircling planets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his same method is adhered to throughout their sojourn on the seventy cultural worlds, the primary spheres of the Salvington circuit.

멜기세덱 구체의 여섯 종속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의 시간을, 많은 다양한 활동이 채우겠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를 고려한다면, 이 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구 단계에 전념한다:

35:3.13 (387.14) Many diverse activities occupy the time of the numerous beings who reside on the six tributary worlds of the Melchizedek sphere, but as concerns the ascending mortals, these satellites are devoted to the following special phases of study:

1. 1_번 구체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초기 행성 생애를 회고{回顧}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 업무는, 필사자로 태어난 일정한 세계에서 온 자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수행된다. **유란시아**에서 온 자들은 그런 체험 회고를 함께 추구한다.

35:3.14 (388.1) 1. Sphere number one is occupied with the review of the initial planetary life of the ascending mortals. This work is carried on in classes composed of those who hail from a given world of mortal origin. Those from Urantia pursue such an experiential review together.

2. 2_번 구체{球體}의 특별한 업무는, 지역 체계 본부의 첫째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맨션 세계들을 거치면서 겪은 체험을 비슷하게 재체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35:3.15 (388.2) 2. The special work of sphere number two consists in a similar review of the experiences passed through on the mansion worlds encircling the premier satellite of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3. 이 구체에서 하는 회고는, 지역 체계 수도{首都}에 머물렀던 것과 관계되며, 체계 본부 무리의 나머지 건축양식 세계에서 있었던 활동을 포함한다.

35:3.16 (388.3) 3. The reviews of this sphere pertain to the sojourn on the capital of the local system and embrace the activities of the remainder of the architectural worlds of the system headquarters cluster.

4. 네 번째 구체는, 성좌{星座}의 70개 종속 세계 및 관련된 구체들에서 겪은 체험을 회고하는 일에 몰두한다.

35:3.17 (388.4) 4. The fourth sphere is occupied with a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seventy tributary worlds of the constellation and of their associated spheres.

5. 다섯 번째 구체에서는, 상승자가 성좌 본부 세계에 체류했던 것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6. 6_번 구체에서 지내는 시간은, 이 다섯 시기를 상호 연결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에 사용되며, 그리하여 우주 훈련을 담당하는 **멜기세덱** 기초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체험의 조정을 마친다.

우주 경영과 영적{靈的}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멜기세덱** 고향 세계에 위치하는데, 거기서는 에너지, 물질, 조직, 통신, 기록, 윤리, 그리고 비교 피조물 실존 등과 같은 단일 계통을 연구하는데 전념하는 학교들도 발견될 것이다.

멜기세덱 영적 재능 학부에서는,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지어 **낙원** 계층도-- **멜기세덱** 및 스랍 선생들과 협동하여 운명의 복음전도자로서 나아가는 무리를 훈련시키는데, 이들은 영적 해방과 신성한 아들신분을 우주의 먼 세계들에도 선포한다. **멜기세덱 대학**의 이 특수학교는 배타적 우주 기관이며; 다른 영역에서 오는 학생 방문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멜기세덱들이 우주 경영의 최고 훈련 과정을 자신의 고향 세계에서 가르친다. 원본 **아버지 멜기세덱**이 이 **고등 윤리 학부**를 운영한다. 다양한 우주가 보내는 교환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온다. **네바돈**이라는 젊은 우주는, 영적 성취와 높은 윤리적 발전 면에서 볼 때 우주들의 등급에서 낮은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경영에 애쓴 덕분에, 다른 영역들로부터 학생 방문자와 참관인들이 **멜기세덱** 학부에 몰려들 만큼, 근처의 다른 창조계를 위한 방대한 상담소가 되도록 지방우주 전체가 변화해왔다. 거대한 집단의 현지{現地} 등록자들 이외에, **멜기세덱** 학교에 참여하는 외래{外來} 학생은 항상 10만 명 이상인데,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 계층이 **스프랜돈** 전체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4. 멜기세덱의 특별 업무

멜기세덱 활동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진보하는 모른시아 생애를 감독하는 것과 관계있다. 인내심 있고 현명한 스랍 사역자들이 이 훈련 대부분을 운영하는데, 우주 달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필사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런 모든 교육 업무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연합하는 **멜기세덱**들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35:3.18 (388.5) 5. On the fifth sphere there is conducted the review of the ascendant sojourn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

35:3.19 (388.6) 6. The time on sphere number six is devoted to an attempt to correlate these five epochs and thus achieve co-ordination of experience preparatory to entering the Melchizedek primary schools of universe training.

35:3.20 (388.7) The school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spiritual wisdom are located on the Melchizedek home world, where also are to be found those schools devoted to a single line of research, such as energy, matter, organization, communication, records, ethics, and comparative creature existence.

35:3.21 (388.8) In the Melchizedek College of Spiritual Endowment all orders — even the Paradise orders — of the Sons of God co-operate with the Melchizedek and the seraphic teachers in training the hosts who go forth as evangelists of destiny, proclaiming spiritual liberty and divine sonship even to the remote worlds of the universe. This particular school of the Melchizedek University is an exclusive universe institution; student visitors are not received from other realms.

35:3.22 (388.9) The highest course of training in universe administration is given by the Melchizedeks on their home world. This College of High Ethics is presided over by the original Father Melchizedek. It is to these schools that the various universes send exchange students. While the young universe of Nebadon stands low in the scale of universes as regards spiritual achievement and high ethical development, nevertheless, our administrative troubles have so turned the whole universe into a vast clinic for other near-by creations that the Melchizedek colleges are thronged with student visitors and observers from other realms. Besides the immense group of local registrants there are always upward of one hundred thousand foreign students in attendance upon the Melchizedek schools, for the order of Melchizedeks in Nebadon is renowned throughout all Splandon.

4. SPECIAL WORK OF THE MELCHIZEDEKS

35:4.1 (388.10) A highly specialized branch of Melchizedek activities has to do with the supervision of the progressive morontia career of the ascending mortals. Much of this training is conducted by the patient and wise seraphic ministers, assisted by mortals who have ascended to relatively higher levels of universe attainment, but all of this educational work i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in association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멜기세덱 계층은, 지방우주의 방대한 교육 체계와 체험 훈련 체제에 주로 전념하는 한편, 색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독특한 임무에서 활약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약 천만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할 진화하는 우주에, 평범하지 않은 많은 것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런 응급 상황에서 **멜기세덱**들이 행동한다. 너희의 성좌 본부 **에덴시아**에서, 그들은 비상사태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어떤 행성이든지, 어떤 체계든지, 어떤 성좌든지, 또는 우주에서든지, 모든 위급한 --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는 한 명 이상의 **멜기세덱 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창조주 아들의 계획 가운데 어떤 점이 실패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멜기세덱**이 즉시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죄로 물든 반역에 직면해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소집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응급 상황이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멜기세덱**들이 행동한다. 그들은 때로 불안정한 행성에서 임시 관리인으로서 행동하는데, 직무에 태만한 행성 정부의 관재인{管財人}으로서 활약한다. 행성 위기가 있을 때,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독특한 여러 역할로 일한다. 그런 **아들**은 자신을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하기가 쉬우며, 때로는 이 계층 가운데 하나가 필사자 육신을 닮은 모습으로 육신화하기도 했다. **네바돈**에서는, 진화하는 세계에서 **멜기세덱**이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일곱 번이나 활동했으며, 수많은 경우에 이 **아들**들은 우주 피조물 가운데 다른 계층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우주 지성체에게, 그리고 어느 세계나, 어느 체계의 세계에든지, 융통성 있고 자발적인 비상조치 사역자임이 사실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유란시아**에 살았던 **멜기세덱**은, 그 부근에서 **살렘 왕자**로 알려졌었는데, **살렘**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거주하는 진리 탐구자들로 이뤄진 작은 집단을 통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했으며, 그 행성의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던 시대 동안, 생명의 빛이 꺼지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진리를 육성했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전수했다.

5. 보론다덱 아들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 **창조적 영**은, 개인 조력자들과 첫째 집단의 다재다능한 **멜기세덱**을

35:4.2 (389.1) While the Melchizedek orders are chiefly devoted to the vast educational system and experiential training regime of the local universe, they also function in unique assignments and in unusual circumstances. In an evolving universe eventually embracing approximately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many things out of the ordinary are destined to happen, and it is in such emergencies that the Melchizedeks act. On Edentia,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they are known as emergency Sons. They are always ready to serve in all exigencies — physical, intellectual, or spiritual — whether on a planet, in a system, in a constellation, or in the universe. Whenever and wherever special help is needed, there you will find one or more of the Melchizedek Sons.

35:4.3 (389.2) When failure of some feature of the Creator Son's plan is threatened, forthwith will go a Melchizedek to render assistance. But not often are they summoned to function in the presence of sinful rebellion, such as occurred in Satania.

35:4.4 (389.3) The Melchizedeks are the first to act in all emergencies of whatever nature on all worlds where will creatures dwell. They sometimes act as temporary custodians on wayward planets, serving as receivers of a defaulting planetary government. In a planetary crisis these Melchizedek Sons serve in many unique capacities. It is easily possible for such a Son to make himself visible to mortal beings, and sometimes one of this order has eve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even times in Nebadon has a Melchizedek served on an evolutionary world in the similitude of mortal flesh, and on numerous occasions these Sons have appeared in the likeness of other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They are indeed the versatile and volunteer emergency ministers to all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and to all the worlds and systems of worlds.

35:4.5 (389.4) The Melchizedek who lived on Urantia during the time of Abraham was locally known as Prince of Salem because he presided over a small colony of truth seekers residing at a place called Salem. He volunteered to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did so with the appro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the planet, who feared that the light of life would become extinguished during that period of increasing spiritual darkness. And he did foster the truth of his day and safely pass it on to Abraham and his associates.

5. THE VORONDADEK SONS

35:5.1 (389.5) After the creation of the personal aids and the first group of the versatile Melchizedeks,

창조한 후에, 우주 아들신분에 속하는 탁월하고 다양한 둘째 계층의 **보론다덱**들을 계획하고 실존하게 했다. 그들은 **성좌 아버지**로서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층에 속한 **아들**이 어느 지방우주든지 각 성좌 정부 대표단에서 한결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보론다덱의 숫자는 각 지방우주마다 다른데, **네바돈**에는 정확하게 100만 명이 등록돼 있다. 이 **아들**들은 그들과 대등한 **멜기세덱**들과 마찬가지로 번식 능력이 없다. 그들이 자신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알려진 바 없다.

이 **아들**들은 여러 면에서 자치{自治} 단체를 구성하며; 그들은 **멜기세덱**과 거의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심지어 전체로서, 대개 자체 결정을 하지만, **보론다덱**들은 그런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훌륭한 융통성 면에서는 **멜기세덱** 형제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통치자로서,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관으로서,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이다. 또한 그들은 경영면에서 그들의 부하인 **라노난덱 체계 주권자**와 전혀 동등하지 않지만, 목적의 안정성에서, 그리고 심판의 신성{神性}에서는, 우주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을 능가한다.

이 계층의 **아들**들의 결정과 통치는 언제나 신성한 아들신분의 영과 일치하고, **창조주 아들**의 정책과 조화되더라도, 그들은 오류{誤謬} 때문에 **창조주 아들**에게 소환된 적이 있으며, 상세한 기술적 측면에서 그들의 결정은 때때로 우주의 상급{上級} 법정에 상소{上訴}돼 반복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실책을 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반역을 일으킨 적은 결코 없으며; **네바돈**의 전체 역사에서, **보론다덱**이 우주 정부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우주에서 **보론다덱**의 업무는 광범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우주들에게 대사{大使}로서 활동하며, 자신이 태어난 우주 내에서는 성좌를 대변하는 영사{領事}로서 근무한다. 지방우주 아들신분의 모든 계층 가운데 그들은 위험한 우주 상황에서 실행될 자치 권력의 전권을 매우 자주 위임받는다.

영적인 암흑 속에 격리된 세계들, 즉 반역과 태만함을 통해서 행성 고립을 겪는 구체에는, 정상적인 지위로 회복될 때까지, 대개 한 명의 참관인 **보론다덱**이 현존한다. 특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이 참관인 **지고자**{至高者}는, 그 행성에 배정된 모든 천상{天上}의 존재를 다스릴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론다덱**이 그런 행성의 **지고자** 섭정{攝政}으로서 그런 권세를 때때로 행사해 왔다는 사실이, **살빙톤**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반역에 물들지 않은 인간거주 세계들에게도 적용돼 왔다.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planned for, and brought into existence, the second great and diverse order of universe sonship, the Vorondadeks. They are more generally known as Constellation Fathers because a Son of this order is uniformly found at the head of each constellation government in every local universe.

35:5.2 (389.6) The number of Vorondadeks varies in each local universe, just one million being the recorded number in Nebadon. These Sons, like their co-ordinates, the Melchizedeks, possess no power of reproduction. There exists no known method whereby they can increase their numbers.

35:5.3 (389.7) In many respects these Sons are a self-governing body; as individuals and as groups, even as a whole, they are largely self-determinative, much as are the Melchizedeks, but Vorondadeks do not function through such a wide range of activities. They do not equal their Melchizedek brethren in brilliant versatility, but they are even more reliable and efficient as rulers and farseeing administrators. Neither are they quite the administrative peers of their subordinates, the Lanonandek System Sovereigns, but they excel all orders of universe sonship in stability of purpose and in divinity of judgment.

35:5.4 (390.1) Although the decisions and rulings of this order of Sons are alway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divine sonship and in harmony with the policies of the Creator Son, they have been cited for error to the Creator Son, and in details of technique their decisions have sometimes been reversed on appeal to the superior tribunals of the universe. But these Sons rarely fall into error, and they have never gone into rebellion; never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has a Vorondadek been found in contempt of the universe government.

35:5.5 (390.2) The service of the Vorondadeks in the local universes is extensive and varied. They serve as ambassadors to other universes and as consuls representing constellations within their native universe. Of all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they are the most often intrusted with the full delegation of sovereign powers to be exercised in critical universe situations.

35:5.6 (390.3) On those worlds segregated in spiritual darkness, those spheres which have, through rebellion and default, suffered planetary isolation, an observer Vorondadek is usually present pending the restoration of normal status. In certain emergencies this Most High observer could exercise absolute and arbitrary authority over every celestial being assigned to that planet. It is of record on Salvington that the Vorondadeks have sometimes exercised such authority as Most High regents of such planets. And this has also been true even of inhabited worlds that were untouched by rebellion.

종종 열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보론다덱 아들** 단체가, 한 행성이나 체계의 지위와 관련된 특별한 소송사건에 관해, 재심과 상소를 맡은 고등 법정으로서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한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는 성과 정부에 고유한 입법 기능과 훨씬 더 많이 관계된다. 이 모든 봉사의 결과로, **보론다덱 아들**들은 지방우주의 역사가가 됐으며; 모든 정치적 갈등과 인간거주 세계의 사회 격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통하다.

6. 성과 아버지

한 지방우주에 속한 100개의 성과{星座} 각각을 지배하도록,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덱**이 배정된다. **창조주 아들**이 이 **아들**들을 선택하며, 10,000년--곧 표준 시간으로 10,000년,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50,000년-- 동안 성과의 **지고자**로서 근무하도록 **가브리엘**이 임명한다. 통치하는 **지고자**, 즉 **성과 아버지**는, 상급자{上級者}와 하급자{下級者} 두 명의 동역자를 둔다.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상급 동역자가 그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임무를 이어받으며, 그동안 **살빙톤** 세계들에 거주하는 휴무{休務} **보론다덱**들은 하급 동역자의 책임을 떠맡도록 선택될 후보자로서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그리하여 통치하는 **지고자**는 각자 현행 정책에 따라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15만 년에 해당하는 3만 년 동안 성과 본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다.

성과 정부에서 실제로 집권하는 우두머리인 100명의 **성과 아버지**가, **창조주 아들**에게 조언하는 최고 자문 기관을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그 토의의 규모와 범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성과의 복지에, 그리고 전체 지방우주의 경영을 통합하는 데 관련돼 있다.

성과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하듯이, 우주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급 동역자가 성과 직무의 대리 지휘자로서 활동한다. 상급 동역자의 전형적 기능은 영적 직무를 감독하는 것이며, 한편 하급 동역자는 성과의 물리적 복지에 직접 관여한다. 아무튼 어떤 주요 정책도, 세 **지고자** 모두가 그것을 실행하는 세부사항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성과에서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영{靈} 지성체와 소통 경로의 전체 체계는 성과 **지고자**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살**

35:5.7 (390.4) Often a corps of twelve or more Vorondadek Sons sits en banc as a high court of review and appeal concerning special cases involving the status of a planet or a system. But their work more largely pertains to the legislative functions indigenous to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As a result of all these services, the Vorondadek Sons have become the historian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personally familiar with all the political struggles and the social upheavals of the inhabited worlds.

6. THE CONSTELLATION FATHERS

35:6.1 (390.5) At least three Vorondadeks are assigned to the rulership of each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of a local universe. These Sons are selected by the Creator Son and are commissioned by Gabriel as the *Most Highs* of the constellations for service during one dekamillennium — 10,000 standard years, about 50,000 years of Urantia time. The reigning Most High, the Constellation Father, has two associates, a senior and a junior. At each change of administration the senior associate become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he junior assumes the duties of the senior, while the unassigned Vorondadeks resident on the Salvington worlds nominate one of their number as candidate for selection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junior associate. Thus each of the Most High rulers, in accordance with present policy, has a period of service on the headquarters of a constellation of three dekamillenniums, about 150,000 Urantia years.

35:6.2 (390.6)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Fathers, the actual presiding heads of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constitute the supreme advisory cabinet of the Creator Son. This council is in frequent session at universe headquarters and is unlimited in the scope and range of its deliberations but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constellations and with the un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35:6.3 (391.1) When a Constellation Father is in attendance upon duties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as he frequently is, the senior associate becomes acting director of constellation affairs. The normal function of the senior associate is the oversight of spiritual affairs, while the junior associate is personally occupied with the physical welfare of the constellation. No major policy, however, is ever carried out in a constellation unless all three of the Most Highs are agreed upon all the details of its execution.

35:6.4 (391.2) The entire mechanism of spirit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hannels is at the

빙톤에서, 상급자들과 그리고 직속 부하인 지역 체계 주권자들과 완전한 접촉을 이룬다. 성좌의 상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 그들은 이 **체계 주권자**들과 자주 회의를 연다.

지도자들은 조연자 단체를 주위에 두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성좌 본부의 다양한 집단의 참석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지역의 필요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때때로 숫자와 인원이 다르다. 그들은 곤경에 처하는 동안 경영 업무를 돕도록, **보론다덱**에 속하는 **아들**들을 추가로 요청하며, 또한 신속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열두 명의 **보론다덱 아들**이, 너희가 속한 **노라티아덱** 성좌를 경영하고 있다.

7. 보론다덱 세계

살빙톤을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주요 구체 회로에서, 둘째 집단의 일곱 세계는 **보론다덱** 행성들로 이뤄져 있다. 이 구체들은 각각,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섯 위성과 함께, **보론다덱** 활동의 특별한 국면에 헌신돼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이 49개 영역에서 우주 법률에 관한 교육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성좌 본부 세계들에서 활동하는 입법{立法} 집회를 관찰해 왔었지만, 여기 이 **보론다덱** 세계들에서는, 상급자{上級者} **보론다덱**들의 감독 아래 지방우주의 실제 일반 법률 제정에 참여한다. 그런 법령은 100개 성좌에서 자치{自治}하는 입법 집회의 다양한 결정을 조화시키도록 고안돼 있다. **보론다덱**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육은 **우버사**의 경우보다도 탁월하다. 이 훈련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여섯 위성에서 추가적 작업을 포함하여, 첫 구체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섯 주요 구체 및 그것과 연합된 위성 집단들에까지 이른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공부와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이 세계들에서 수많은 새로운 활동에 입문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밝히지 못하도록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필사 존재의 물질 정신에게 이 이행 업무들을 묘사하기를 단념했다. 우리는 이 숭고한 활동의 의미를 전달할 만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49개의 세계에서 연구하는 동안,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가질, 새로운 이 직업들에 대한 예증{例證}으로 활용될만한 비슷한 인간 용무가 없다. 그리고 상승 체계의 일부분이 아닌 다른 많은 활동이, **살빙톤** 회로에 속하는 이 **보론다덱** 세계들에 집중돼 있다.

disposal of the constellation Most Highs. They are in perfect touch with their superiors on Salvington and with their direct subordinates, the sovereigns of the local systems. They frequently convene in council with these System Sovereigns to deliberate upon the state of the constellation.

35:6.5 (391.3) The Most Highs surround themselves with a corps of counselors, which varies in number and personnel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of the various groups at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also as the local requirements vary. During times of stress they may ask for, and will quickly receive, additional Sons of the Vorondadek order to assist with the administrative work. Norlatidek, your own constellation, is at present administered by twelve Vorondadek Sons.

7. THE VORONDADEK WORLDS

35:7.1 (391.4) The second group of seven worlds in the circuit of seventy primary spheres surrounding Salvington comprise the Vorondadek planets. Each of these spheres, with its six encircling satellites, is devoted to a special phase of Vorondadek activities. On these forty-nine realms the ascending mortals secure the acme of their education respecting universe legislation.

35:7.2 (391.5) The ascending mortals have observed the legislative assemblies as they func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constellations, but here on these Vorondadek worlds the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of the actual general legislation of the local universe under the tutelage of the senior Vorondadeks. Such enactments are designed to co-ordinate the varied pronouncements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instruction to be had in the Vorondadek schools is unexcelled even on Uversa. This training is progressive, extending from the first sphere, with supplemental work on its six satellites, on up through the remaining six primary spheres and their associated satellite groups.

35:7.3 (391.6) The ascending pilgrims will be introduced to numerous new activities on these worlds of study and practical work. We are not forbidden to undertake the revelation of these new and undreamed-of pursuits, but we despair of being able to portray these undertakings to the material mind of mortal beings. We are without words to convey the meanings of these supernal activities, and there are no analogous human engagements which might be utilized as illustrations of these new occupations of the ascending mortals as they pursue their studies on these forty-nine worlds. And many other activities, not a part of the ascendant regime, are centered on these Vorondadek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8. 라노난덱 아들

창조주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은, **보론다덱**들을 창조한 후에, 우주 아들신분 중에서 셋째 계층인 **라노난덱**들을 실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했다. 그들은 체계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지역 체계의 통치자인 **체계 주권자**로서, 그리고 인간거주 세계들의 경영 우두머리인 **행성 왕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후기에 창조된 아들신분이고 --신성 수준을 고려하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그 다음에 있을 근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멜기세덱** 세계들에서 훈련받는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간 첫 학생이었으며, **멜기세덱** 선생과 시험관(試驗官)들이 그들의 역량과 인격과 달성에 따라 분류하고 보충했다.

네바돈 우주가 실존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1,200만 명의 **라노난덱**이 있었고, 그들은 **멜기세덱** 구체를 거친 후에, 최종 시험에서 세 부류로 나뉘었다:

1. 1차 **라노난덱** 가장 높은 직급에 709,841명이 있었다. 이들은 성좌 최고 협의회에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우주의 고등 경영 업무에 조언자로서 지정됐다.

2. 2차 **라노난덱** **멜기세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계층에는 10,234,601명이 있었다. 그들은 **행성 왕자**로서, 그리고 그 계층의 예비군으로서 배정된다.

3. 3차 **라노난덱** 이 집단은 1,055,558명을 포함했다. 이 **아들**들은, 예하 보좌관, 심부름꾼, 관리인, 감독관, 참관인으로서 활약하며, 어떤 체계 및 그것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진화하는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이 **아들**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멜기세덱** 훈련을 받게 될 때, 즉 일단 시험 받고 분류될 때, 배정된 그 지위에서 계속 종사한다. 또한 이 **아들**들은 번식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못하며, 우주에 있는 그들의 숫자는 고정돼 있다.

어림잡아, **라노난덱** 계층의 **아들**들 숫자는 **살빙톤**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우주 협조자 및 **성좌 조언자** -----

8. THE LANONANDEK SONS

35:8.1 (392.1) After the creation of the Vorondadeks,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unite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nto existence the third order of universe sonship, the Lanonandeks. Although occupied with varied tasks connected with the system administrations, they are best known as System Sovereigns, the rulers of the local systems, and as Planetary Princes, the administrative heads of the inhabited worlds.

35:8.2 (392.2) Being a later and lower — as concerns divinity levels — order of sonship creation, these beings were required to pass through certain courses of training on the Melchizedek worlds in preparation for subsequent service. They were the first students in the Melchizedek University and were classified and certified by their Melchizedek teachers and examiners according to ability, personality, and attainment.

35:8.3 (392.3) The universe of Nebadon began its existence with exactly twelve million Lanonandeks, and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the Melchizedek sphere, they were divided in the final tests into three classes:

35:8.4 (392.4) 1. *Primary Lanonandeks.* Of the highest rank there were 709,841. These are the Sons designated as System Sovereigns and assistants to the supreme councils of the constellations and as counselors in the higher administrative work of the universe.

35:8.5 (392.5) 2. *Secondary Lanonandeks.* Of this order emerging from Melchizedek there were 10,234,601. They are assigned as Planetary Princes and to the reserves of that order.

35:8.6 (392.6) 3. *Tertiary Lanonandeks.* This group contained 1,055,558. These Sons function as subordinate assistants, messengers, custodians, commissioners, observers, and prosecute the miscellaneous duties of a system and its component worlds.

35:8.7 (392.7) It is not possible, as it is with evolutionary beings, for these Sons to progress from one group to another. When subjected to the Melchizedek training, when once tested and classified, they serve continuously in the rank assigned. Neither do these Sons engage in reproduction; their number in the universe is stationary.

35:8.8 (392.8) In round numbers the Lanonandek order of Sons is classified on Salvington as follows:

35:8.9 (392.9) Universe Co-ordinators and Constellation Counselors. 100,000

100,000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 ----- 600,000

행성 왕자 및 예비군 ----- 10,000,000

사자{使者} 단체 ----- 400,000

관리인 및 기록원 ----- 100,000

예비 단체 ----- 800,000

아들신분 계층에서, **라노난덱**은 **멜기세덱** 및 **보론다덱**보다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우주의 예하 구성단위들에서 훨씬 더 큰 봉사에 임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등 피조물, 즉 지성을 가진 인종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타락할 수 있는 위험, 즉 우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기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더 심각하게 처해 있다. 그러나 이 **라노난덱**, 특히 1차 계층은, 전체 지방우주 경영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다재다능하다. 행정 역량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존재는, **가브리엘**과 그의 계시되지 않은 동역자들 밖에 없다.

35:8.10 (392.10) System Sovereigns and Assistants..... 600,000

35:8.11 (392.11) Planetary Princes and Reserves..... 10,000,000

35:8.12 (392.12) Messenger Corps..... 400,000

35:8.13 (392.13) Custodians and Recorders..... 100,000

35:8.14 (392.14) Reserve Corps..... 800,000

35:8.15 (392.15) Since Lanonandeks are a somewhat lower order of sonship than the Melchizedeks and the Vorondadeks, they are of even greater service in the subordinate units of the universe, for they are capable of drawing nearer the lower creatures of the intelligent races. They also stand in greater danger of going astray, of departing from the acceptable technique of universe government. But these Lanonandeks, especially the primary order, are the most able and versatile of all local universe administrators. In executive ability they are excelled only by Gabriel and his unrevealed associates.

9. 라노난덱 통치자

라노난덱들은 행성을 지속적으로 통치하는 자이며, 번갈아서 체계 주권자가 된다. 그런 **아들** 하나가,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너희 지역 체계 본부 **예루셈**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체계 주권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각 체계 본부에서, 둘 또는 세 명이 위임 받아 통치한다. **성좌 아버지**는, 이 **라노난덱**들 중에서 한 명을 10,000년마다 우두머리로 임명한다. 때로는 세 명의 우두머리 체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성좌 통치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체계 정부는 어떤 종류든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원 구성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체계 주권자 또는 보좌관이 해임됐을 때, 그 자리는 성좌 본부에 위치한 최고 협의회가 그 계층의 예비군에서 선택한 자로 대치되는데, 이 집단은 바람직한 평균보다 **에덴시아**에서 더 크다.

라노난덱 최고 협의회는 서로 다른 성좌 본부에 위치한다. **성좌 아버지**의 상급{上級} 동료 **지고자**가 그런 기관을 통솔하며, 한편 하급 동료는 2차 계층의 예비군을 감독한다.

체계 주권자는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으며; 인간거주 세계의 국지적 직무에서 주권자나 다름없

9. THE LANONANDEK RULERS

35:9.1 (393.1) The Lanonandeks are the continuous rulers of the planets and the rotating sovereigns of the systems. Such a Son now rules on Jerus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35:9.2 (393.2) The System Sovereigns rule in commissions of two or three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ystem of inhabited worlds. The Constellation Father names one of these Lanonandeks as chief every dekamillennium. Sometimes no change in the head of the trio is made, the matter being entirely optional with the constellation rulers. System governments do not suddenly change in personnel unless a tragedy of some sort occurs.

35:9.3 (393.3) When System Sovereigns or assistants are recalled, their places are filled by selections made by the supreme council located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rom the reserves of that order, a group which is larger on Edentia than the average indicated.

35:9.4 (393.4) The supreme Lanonandek councils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constellation headquarters. Such a body is presided over by the senior Most High associate of the Constellation Father, while the junior associate supervises the reserves of the secondary order.

35:9.5 (393.5) The System Sovereigns are true to their names; they are well-nigh sovereign in the

다. **행성 왕자, 물질 아들**, 그리고 보살피는 영들을 지휘할 때, 그들은 거의 아버지 같은 위치에 있다. 주권자의 개인적인 지배력은 거의 완벽하다. 이 통치자들은, 중앙우주로부터 온 **삼위일체** 참관인들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행정 부서이며, 입법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사법 판결을 적용하는 행정관으로서, **미가엘 아들**의 뜻에 대항하는 개인적 불충성이 아주 쉽게, 재빨리 깊이 숨어서 자기 주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체 우주 행정부에서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방우주는, 700명 이상의 **라노난덱 아들**들이 우주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했고, 그리하여 몇몇 체계와 수많은 행성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불행했다. 실패한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세 명만이 **체계 주권자**였으며; 사실상 이 **아들**들은 모두 둘째 및 셋째 계층, 즉 **행성 왕자**와 3차 **라노난덱** 출신{出身}이었다.

이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본래의 상태에서부터 타락한 것이, 창조자숨씨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들은 신성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 피조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다.

오르본톤에 있는 모든 지방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는, **헨셀론**을 제외하고, 이 계층의 **아들**을 가장 많이 잃었다. 우리 **라노난덱 아들** 계층이 선택과 계획에서 그런 넓은 수준의 개인적 자유를 지니고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네바돈**에서 경영상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우버사**의 여론이다. 나는 비판하는 각도에서 이런 소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우주의 **창조주**는 이렇게 할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아들**들이 초기 우주 시대에 과도한 재난을 일으키는 반면, 물체들이 완전하게 선별되고 마침내 안주했을 때, 철저히 시험 받은 이 **아들**들 편에서, 더 고귀하게 충성하고 더 온전히 자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초기의 혼돈과 시련을 보상하고도 남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높은 통치자들의 주장이다.

어떤 체계 본부에서 반역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개 한 명의 새로운 주권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임명되지만, 개별 행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행성은 물질 창조의 구성단위이며, 피조물의 자유 의지는 그런 모든 문제의 최종 판결에서 한 요인이 된다. 후임 **행성 왕자**는 격리된 세계, 즉 권세 있는 **왕자**가 타락해 버린 그 행성을 위해서 지명되지만, **멜기세덱** 및 다른 돌보는 인격체들이 채택한 교정 방책에 따라서 반란의 결과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제거되기 전에는, 그런 세계에 대한 능동적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성 왕자**가 반역하면 그의 행성은 즉시 격리되며;국지

local affairs of the inhabited worlds. They are almost paternal in their dir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s, the Material Sons, and the ministering spirits. The personal grasp of the sovereign is all but complete. These rulers are not supervised by Trinity observers from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executive divis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as custodians of the enforcement of legislative mandates and as executives for the application of judicial verdicts, they present the one place in all universe administration where personal disloyalty to the will of the Michael Son could most easily and readily intrench itself and seek to assert itself.

35:9.6 (393.6) Our local universe has been unfortunate in that over seven hundred Sons of the Lanonandek order have rebelled against the universe government, thus precipitating confusion in several systems and on numerous planets. Of this entire number of failures only three were System Sovereigns; practically all of these Sons belonged to the second and third orders, Planetary Princes and tertiary Lanonandeks.

35:9.7 (393.7) The large number of these Sons who have lapsed from integrity does not indicate any fault in creatorship. They could have been made divinely perfect, but they were so created that they might better understand, and draw near to, the evolutionary creatures dwelling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35:9.8 (393.8) Of all the local universes in Orvonton, our universe has, with the exception of Henselon, lost the largest number of this order of Sons. On Uversa it is the consensus that we have had so much administrative trouble in Nebadon because our Sons of the Lanonandek order have been created with such a large degree of personal liberty in choosing and planning. I do not make this observation by way of criticism. The Creator of our universe has full authority and power to do this. It is the contention of our high rulers that, while such free-choosing Sons make excessive trouble in the earlier ages of the universe, when things are fully sifted and finally settled, the gains of higher loyalty and fuller volitional service on the part of these thoroughly tested Sons will far more than compensate for the confusion and tribulations of earlier times.

35:9.9 (394.1) In the event of rebellion on a system headquarters, a new sovereign is usually installed within a comparatively short time, but not so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y are the component units of the material creation, and creature free will is a factor in the final adjudication of all such problems. Successor Planetary Princes are designated for isolated worlds, planets whose princes of authority may have gone astray, but they do not assume active rulership of such worlds until the results of insurrection are partially overcome and removed by the remedial measures adopted by the

적인 영적 회로들이 즉각 단절된다. 오직 증여된 **아들만**이, 영적으로 격리된 그런 세계에서 행성 간 통신선을 복구시킬 수 있다.

고집 세고 어리석은 이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고, 자비로운 이 규정의 혜택을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태만했던 그 위치에서는 결코 다시 활동하지 못한다. 그들은 복귀된 후에, 관리하는 직책으로 물리적 경영 부서에 배치된다.

10. 라노난덱 세계

70개의 행성으로 이뤄진 **살빙톤** 회로에서 일곱 세계로 구성된 셋째 집단은, 그들 자체의 42개 위성과 함께, **라노난덱** 경영 구체 무리를 구성한다. 이 영역에서 전에 **체계 주권자** 단체에 소속되는 체험을 했던 **라노난덱**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스랍 무리의 경영 선생으로서 직무를 감당한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일하는 체계 경영자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은 여기서 10,000개 지역 체계의 경영상 결정을 실제로 조정하는 일에 관여한다.

지방우주의 이 경영 학교들은, **체계 주권자**로서, 그리고 성과 조인자로서, 오랫동안 체험한 **라노난덱 아들** 단체의 감독을 받는다. 이 행정 학부들보다 우수한 것은 **엔사**의 경영 학교밖에 없다.

라노난덱 세계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한 훈련 구체로서 이바지하는 한편, 우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상 운영과 관계되는 광범한 이행업무의 중심지다. **낙원**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적용된 지식을--곧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실행하는 실제 훈련을--가르치는 실용 학교들에서 연구에 힘을 쏟는다. **멜기세덱**들이 후원하는 우주 교육 체계는, 실용적이고 진취적이고 의미심장하며 체험적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지성적인, 모론시아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관련된 훈련을 포함한다.

이 **라노난덱** 경영 구체들과 관련하여, 그 계층에서 구체받은 **아들**들 대부분은, 행성 직무 관리인과 지도자로서 근무한다. 그리고 이 직무에 태만한 **행성 왕자**들,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다가 제안된 복권{復權}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그 동역자들은, 이 일상적인 자격으로, 적어도 **네바돈**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다.

Melchizedeks and other ministering personalities. Rebellion by a Planetary Prince instantly isolates his planet; the local spiritual circuits are immediately severed. Only a bestowal Son can re-establish interplanetary lines of communication on such a spiritually isolated world.

35:9.10 (394.2) There exists a plan for saving these wayward and unwise Sons, and many have availed themselves of this merciful provision; but never again may they function in those positions wherein they defaulted. After rehabilitation they are assigned to custodial duties and to departments of physical administration.

10. THE LANONANDEK WORLDS

35:10.1 (394.3) The third group of seven worlds in the Salvington circuit of seventy planets, with their respective forty-two satellites, constitute the Lanonandek cluster of administrative spheres. On these realms the experienced Lanonandeks belonging to the ex-System Sovereign corps officiate as administrative teachers of the ascending pilgrims and the seraphic hosts. The evolutionary mortals observe the system administrators at work on the system capitals, but here they participate in the actual co-ord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nouncements of the ten thousand local systems.

35:10.2 (394.4) These administrative schools of the local universe are supervised by a corps of Lanonandek Sons who have had long experience as System Sovereigns and as constellation counselors. These executive colleges are excelled only by the administrative schools of Ensa.

35:10.3 (394.5) While serving as training spheres for ascending mortals, the Lanonandek worlds are the centers for extensive undertakings having to do with the normal and routine administrative operations of the universe. All the way in to Paradise the ascending pilgrims pursue their studies in the practical schools of applied knowledge — actual training in really doing the things they are being taught. The universe educational system sponsored by the Melchizedeks is practical, progressive, meaningful, and experiential. It embraces training in things material, intellectual, morontial, and spiritual.

35:10.4 (394.6) It is in connection with these administrative spheres of the Lanonandeks that most of the salvaged Sons of that order serve as custodians and directors of planetary affairs. And these defaulting Planetary Princes and their associates in rebellion who choose to accept the proffered rehabilitation will continue to serve in these routine capacities, at least until the universe of Nebadon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어쨌든, 비교적 오래된 체계들에 있는 **라노난**
덱 아들 중에서 다수는, 봉사와 경영과 영적 성취
면에서 훌륭한 기록을 세웠다. 그들은 개인의 자
유라는 오류와, 자주적 결정이라는 허구성을 통
해서 실책을 범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고결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런 집단이다.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천**
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후원했음]

35:10.5 (394.7) Many of the Lanonandek Sons in the
older systems, however, have established
wonderful records of service, administration,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y are a noble, faithful,
and loyal group, notwithstanding their tendency to
fall into error through fallacies of personal liberty
and fictions of self-determination.

35:10.6 (394.8) [Sponsored by the Chief of Archangels
acting by authority of Gabriel of Salvington.]

제36편. 생명 운반자

⇨ 035

유랜시아 책

037 ⇨

II 부. 지방우주

제36편
생명 운반자

섹션

소개

1. 생명 운반자의 기원과 본성
2. 생명 운반자 세계
3. 생명 이식
4.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
5. 일곱 보조 정신_영
6. 살아있는 세력

PAPER 36

THE LIFE CARRIER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Life Carriers
2. The Life Carrier Worlds
3. Life Transplantation
4. Melchizedek Life Carriers
5.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6. Living Forces

소개

생명은 자생적으로 기원되지 않는다. 생명은, (계시되지 않은) **존재 설계자**들이 처방한 계획에 따라서 조성되며, 직접 주입으로 또는 지방우주 **생명 운반자**들이 작용한 결과로, 거주가능 행성에 출현한다. 이 **생명 운반자**들은, 우주 **아들**로 구성된 다양한 계보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융통성이 있다. 그들은 피조 생명을 설계하고 행성 구체{球體}로 옮기는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런 새로운 세계에 심은 후에는, 생명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곳에 긴 기간 머문다.

INTRODUCTION

36:0.1 (396.1) LIFE does not originate spontaneously. Life is constructed according to plans formulated by the (unrevealed) Architects of Being and appears on the inhabited planets either by direct importation o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s of the Life Carriers of the local universes. These carriers of life are among the most interesting and versatile of the diverse family of universe Sons. They are intrusted with designing and carrying creature life to the planetary spheres. And after planting this life on such new worlds, they remain there for long periods to foster its development.

1. 생명 운반자의 기원과 본성

비록 신성한 아들신분 계보에 속하더라도, **생명 운반자**들은 독특하고 명확한 유형에 해당되는 우주 **아들**인데, 연방우주 통치자들은 지방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집단의 지성 생명체를 창조하는 데에만 참여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창조주 아들**, **우주 어머니 영**, 그리고 관계된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태고 항존자**들 가운데 지정된 한 명, 이렇게 선제{先在}하는 세 인격체의 자손이다. 오직 이 **태고 항존자**들만이, 지성을 지닌 생명체의 소멸{消滅}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생명 운반**

1. ORIGIN AND NATURE OF LIFE CARRIERS

36:1.1 (396.2) Though the Life Carriers belong to the family of divine sonship, they are a peculiar and distinct type of universe Sons, being the only group of intelligent life in a local universe in whose creation the rulers of a superuniverse participate. The Life Carriers are the offspring of three pre-existent personalities: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by designation, one of the three Ancients of Days presiding over the destinie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These

자들의 창조에 참여하는데, 진화하는 세계에 물리적 생명을 확립하는 일은 **생명 운반자**들에게 맡겨진다.

우리는 **네바돈** 우주에서 1억 명의 **생명 운반자**가 창조됐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생명을 퍼뜨리는 유능한 이 단체는, 진정한 자치{自治} 집단은 아니다. 그들은, **가브리엘**,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고 **네바돈**의 첫 태생 원본 **생명 운반자**인 **남비아**로 구성된, 생명을 결정하는 3인조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부서별로 경영하는 모든 국면에서는 그들이 자치한다.

생명 운반자는 크게 세 부서로 대별된다: 첫째 부서는 상급 **생명 운반자**이고, 둘째는 보좌관이며, 셋째는 관리인이다. 첫 부서는 생명 형태화의 다양한 형식에 따라서 열두 개의 전문 집단으로 다시 나뉜다. **멜기세덱**들이 이 세 부서의 분리를 초래했으며, 그들은 **생명 운반자** 본부 구체에서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지휘했다. **멜기세덱**들은 그 후로 계속 **생명 운반자**들과 가깝게 연합해 왔으며, 새로운 행성에 생명을 확립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동행한다.

진화하는 행성이 마침내 빛과 생명에 정착하면, **생명 운반자**들은 고등 심의{審議} 기구로서 조직되는데, 이 기구는 그 세계 및 거기 있는 영화롭게 된 존재들의 장차 경영과 발달을 돕기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 **생명 운반자**들은, 진화하는 우주에서 후기의 정착된 시대에, 많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Ancients of Days, who alone can decree the extinction of intelligent life,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 Life Carriers, who are intrusted with establishing physical life on the evolving worlds.

36:1.2 (396.3) In the universe of Nebadon we have on record the creation of one hundred million Life Carriers. This efficient corps of life disseminators is not a truly self-governing group. They are directed by the life-determining trio, consisting of Gabriel, the Father Melchizedek, and Nambia, the original and first-born Life Carrier of Nebadon. But in all phases of their divisional administration they are self-governing.

36:1.3 (396.4) Life Carriers are graded into three grand divisions: The first division is the senior Life Carriers, the second, assistants, and the third, custodians. The primary division is subdivided into twelve groups of specialists in the various forms of life manifestation. The segregation of these three divisions was effected by the Melchizedeks, who conducted tests for such purposes on the Life Carriers' headquarters sphere. The Melchizedeks have ever since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fe Carriers and always accompany them when they go forth to establish life on a new planet.

36:1.4 (396.5) When an evolutionary planet is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Life Carriers are organized into the higher deliberative bodies of advisory capacity to assist in the further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and its glorified beings. In the later and settled ages of an evolving universe these Life Carriers are intrusted with many new duties.

2. 생명 운반자 세계

멜기세덱들은 **살빙톤** 회로에 있는 일곱 개의 주요 구체 중에서 넷째 집단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이 **생명 운반자** 세계들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1. **생명 운반자** 본부.
2. 생명_계획 구체{球體}.
3. 생명_보존 구체.
4. 생명 진화 구체.
5. 정신과 연합된 생명의 구체.
6. 살아있는 존재들의 정신 및 영의 구체.
7. 계시되지 않은 생명의 구체.

이 주요 구체들은 각각 여섯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주에서 모든 **생명 운반자** 활동의 특별한 국면이 그 위성들에 집중된다.

2. THE LIFE CARRIER WORLDS

36:2.1 (397.1) The Melchizedeks have the general oversight of the fourth group of seven primary spheres in the Salvington circuit. These worlds of the Life Carriers are designated as follows:

36:2.2 (397.2) 1. The Life Carrier headquarters.

36:2.3 (397.3) 2. The life-planning sphere.

36:2.4 (397.4) 3. The life-conservation sphere.

36:2.5 (397.5) 4. The sphere of life evolution.

36:2.6 (397.6) 5. The sphere of life associated with mind.

36:2.7 (397.7) 6. The sphere of mind and spirit in living beings.

36:2.8 (397.8) 7. The sphere of unrevealed life.

36:2.9 (397.9) Each of these primary spheres is surrounded by six satellites, on which the special phases of all the Life Carrier activities in the universe are centered.

1_번 세계는 본부 구체이며, 그 여섯 종속 위성과 함께, 보편적 생명, 즉 알려진 모든 형태화 국면의 생명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다. 생명 계획 학부가 여기에 위치하며, **우버사와 하보나**에서 그리고 심지어 **낙원**에서 온 선생과 충고자들이 거기서 활약한다. 그리고 나는, 보조 정신_영들의 일곱 중앙 설치 장소가 **생명 운반자**들의 이 세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혀도 좋다고 허락 받았다.

10이라는 숫자가 --곧 10진{十進} 체계가-- 물리적 우주에 고유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 영역의 특징은 3, 7, 12, 또는 이 기본 숫자들의 배수{倍數}와 조합이다. 세 명의 **낙원 근원 및 중심** 계층 다음에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세 생명 계획이 있으며,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3대 기본 생명 형태가, 서로 다른 세 유형의 행성들에 분리돼 있다. 원래는 12개의 독특하고 신성한, 전달 가능한 생명 개념이 존재했다. 12라는 이 숫자는, 그 분수{分數} 및 배수와 함께, 모든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생명 원형{原型}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 또한 일곱 가지 설계 유형의 생명 계획, 즉 살아있는 물체의 번식을 형성하는 근본 배합이 있다. **오르본톤** 생명 원형들은 12개의 유전성 운반체로 형성된다. 의지를 지닌 서로 다른 계층의 피조물은, 12, 24, 48, 96, 192, 384, 그리고 768개로 배열된다. **유란시아**에는 인간을 번식시키는 성{性} 세포 속에 48개의 원형 통제 단위가--즉 특징을 결정하는 인자가-- 있다.

둘째 세계는 생명_계획 구체이며; 여기서 생명체 조직의 모든 새로운 형식이 산출된다. **창조주 아들**이 생명 설계 원본을 제공하지만, 이 계획의 실제 결실과정은 **생명 운반자**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전반적 생명 계획이 일단 조직되고 나면, 본부 구체로 전달되는데, 거기서 일단{一團}의 자문하는 **멜기세덱**과 협력하는 상급 **생명 운반자** 최고 협의회가 끊임없이 세밀하게 조사한다. 그 계획이 전에 받아들여졌던 공식들과 다르게 되면, 반드시 **창조주 아들**에게 전달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가 이런 심의에서 종종 **창조주 아들**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행성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반면, 각 진화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생명은 단일 계보의 세계들 가운데 동형{同形} 생명 계열에서조차, 어떤 두 행성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경우가 없으며; 어떤 행성 유형이 항상 있는데, **생명 운반자**들이 자신의 보호에 맡겨진 생명 공식을 개선시키려고 애쓰면서 끊임없이 작업하기 때문이다.

생명 형태화에 속하는 어버이 원형{元型}들과

36:2.10 (397.10) *World Number One, the headquarters sphere, together with its six tributary satellites, is devoted to the study of universal life, life in all of its known phases of manifestation. Here is located the college of life planning, wherein function teachers and advisers from Uversa and Havona, even from Paradise. And I am permitted to reveal that the seven central emplacement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situated on this world of the Life Carriers.*

36:2.11 (397.11) The number ten — the decimal system — is inherent in the physical universe but not in the spiritual. The domain of life is characterized by three, seven, and twelve or by multiples and combinations of these basic numbers. There are three primal and essentially different life plans, after the order of the three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and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se three basic forms of life are segregat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lanets. There were, originally, twelve distinct and divine concepts of transmissible life. This number twelve, with its subdivisions and multiples, runs throughout all basic life patterns of all seven superuniverses. There are also seven architectural types of life design, fundamental arrangements of the reproducing configurations of living matter. The Orvonton life patterns are configured as twelve inheritance carriers. The differing orders of will creatures are configured as 12, 24, 48, 96, 192, 384, and 768. On Urantia there are forty-eight units of pattern control — trait determiners — in the sex cells of human reproduction.

36:2.12 (397.12) *The Second World* is the life-designing sphere; here all new modes of life organization are worked out. While the original life designs are provided by the Creator Son, the actual outworking of these plans is intrusted to the Life Carriers and their associates. When the general life plans for a new world have been formulated, they are transmitted to the headquarters sphere, where they are minutely scrutinized by the supreme council of the senior Life Carriers in collaboration with a corps of consulting Melchizedeks. If the plans are a departure from previously accepted formulas, they must be passed upon, and endorsed by, the Creator Son. The chief of Melchizedeks often represents the Creator Son in these deliberations.

36:2.13 (397.13) Planetary life, therefore, while similar in some respects, differs in many ways on each evolutionary world. Even in a uniform life series in a single family of worlds, life is not exactly the same on any two planets; there is always a planetary type, for the Life Carriers work constantly in an effort to improve the vital formulas committed to their keeping.

36:2.14 (398.1) There are over one million

수많은 기능적 기본 변이를 구성하는 근본 공식, 즉 시공우주의 화학 공식은 100만 가지 이상이다. 생명을_계획하는 구체의 1_번 위성{衛星}은, **생명 운반자**들을 기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우주 물리학자 및 전기화학자들의 영역인데, 그들은 소위 배아{胚芽} 원형질이라고 불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물질 운반체를 확립하는 데 이용되는 근본 에너지 단위들을 포착하고 조직하며 조종하는 작업을 한다.

행성의 생명을_계획하는 실험실은 이 2_번 세계의 둘째 위성에 위치하고 있다. **생명 운반자**들과 그 모든 동역자들은, 이 실험실에서 **네바돈**의 10진{十進} 행성들에 이식시키기 위해 계획된 생명체를 변경시키고 어떻게든지 개선시키고자 애쓰면서, **멜기세덱**과 협력한다. 지금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는, 바로 이 세계에서 계획됐고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란시아**가 십진법 행성, 즉 생명을_시도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세계마다 한 세계에서, 다른 (비실험) 세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변화가 표준 생명 설계에 허용된다.

3_번 세계는 생명의 보존에 몰두한다. 여기서 **생명 운반자** 단체의 보좌관과 관리인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다양한 형식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모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생명 계획은, 일찍 정착하도록 생명_보존 위원회가 항상 마련해 주는데, 이 위원회는 기본 생명 원형{原型}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유란시아**에는 그런 관리 위원이 24명 있었는데, 생명 물질의 건축양식 조직의 근원적인 각 원형, 즉 아버지 원형마다 둘씩이다. 너희 행성 같은 그런 행성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은, 24개의 원형{原型} 단위를 갖는, 생명_전달 묶음으로 번식된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육체의 생명체로부터,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자라므로, 심령{心靈} 조직의 24가지 기본 계층이 실존하게 된다.)

4_번 구체 및 그 종속 위성들은, 일반적으로 피조 생명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그리고 특히 어떤 한 생명 수준의 진화 선행조건에 전념한다. 진화 세계의 원본 생명 원형질은, 모든 미래의 발전적인 변종을 위한,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진화적 변화 및 변종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생명을 변질시키는 그런 밀리까지 미치는 기획을 위한 준비는, 외견상 쓸모없는 많은 형태의 동물 및 식물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행성의 진화에서 생기는 그런 부산물은, 예견된 것이든지 예견되지 않은 것이든지, 오직 사라지는 역할을 위해서 행동의 무대에 등장하지만, 이 긴 과정 전체에서 그리고 그 과정 내내, 행성 생명 계획과 종족 짜임새에 대한 원래 설계자들의 현명하고 지성적인 처방이 계속 적용된다. 하등 형태의 생명체들을 지배하려는 고등 피조물이 위로 올라가는 긴 투쟁에서, 때때로 걸

fundamental or cosmic chemical formulas which constitute the parent patterns and the numerous basic functional variations of life manifestations. Satellite number one of the life-planning sphere is the realm of the universe physicists and electrochemists who serve as technical assistants to the Life Carriers in the work of capturing, organizing, and manipulating the essential units of energy which are employed in building up the material vehicles of life transmission, the so-called germ plasm.

36:2.15 (398.2) The planetary life-planning laboratories are situated on the second satellite of this world number two. In these laboratories the Life Carriers and all their associates collaborate with the Melchizedeks in the effort to modify and possibly improve the life designed for implantation on the decimal planets of Neadon. The life now evolving on Urantia was planned and partially worked out on this very world, for Urantia is a decimal planet, a life-experiment world. On one world in each ten a greater variance in the standard life designs is permitted than on the other (nonexperimental) worlds.

36:2.16 (398.3) *World Number Three* is devoted to the conservation of life. Here various modes of lif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re studied and developed by the assistants and custodians of the Life Carrier corps. The life plans for every new world always provide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life-conservation commission, consisting of custodian specialists in the expert manipulation of the basic life patterns. On Urantia there were twenty-four such custodian commissioners, two for each fundamental or parent pattern of the architectural organization of the life material. On planets such as yours the highest form of life is reproduced by a life-carrying bundle which possesses twenty-four pattern units. (And since the intellectual life grows out of, and upon the foundation of, the physical, there come into existence the four and twenty basic orders of psychic organization.)

36:2.17 (398.4) *Sphere Number Four* and its tributary satellites are devoted to the study of the evolution of creature life in general and to the evolutionary antecedents of any one life level in particular. The original life plasm of an evolutionary world must contain the full potential for all future developmental variations and for all subsequent evolutionary changes and modifications. The provision for such far-reaching projects of life metamorphosis may require the appearance of many apparently useless forms of animal and vegetable life. Such by-products of planetary evolution, foreseen or unforeseen, appear upon the stage of action only to disappear, but in and through all this long process there runs the thread of the wise and intelligent formulations of the original designers of the planetary life plan and

보기에 엄청난 부조화가 널리 퍼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생물학적 진화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산물은, 더 높은 지성 생명 형태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데 모두 꼭 필요하며, 이따금 하등 형태의 생명체를 가운데 다수는,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의 평화와 안락함에 매우 해롭다.

5_번 세계는 정신과 관련된 생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 위성들은 각각, 피조물의 생활과 상호 관련된, 단일 국면의 피조물 정신을 연구하는데 몰두한다. 사람이 납득하는 바와 같은 정신은, 학습력이 없는 수준, 즉 기계적인 수준의 정신 위에, **무한한 영**이 주선함으로써 일곱 보조 정신_영 재능을 덧붙인 것이다. 생명 원형{原型}들은, 이 보조체들에 대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다른 영 사역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 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피조물의 능력은 오로지, 연합된 정신 재능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다시 바로 이 필사 피조물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방향을 설정해 왔다.

6_번 세계는, 정신과 영이 살아있는 형태 및 유기체들과 관련되는 그런 정신과 영의 상호 관계에 전념한다. 이 세계와 그 여섯 종속위성은 피조물 조정 학교들을 포함하는데,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로부터 온 선생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피조물이 달성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과제에, **네바돈** 교관{敎官}들과 여기서 협력한다.

생명 운반자들의 **일곱째 구체**는, **지존하신 분**의 확장하는 사실화가 시공우주 원리에 관련되는 만큼, 진화하는 피조 생명체의 계시되지 않은 분야에 전념한다.

3. 생명 이식

생명은 우주에서 저절로 출현하지 않으며; 척박한 행성에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을 창시해야 한다. 그들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 출현하는 생명을 운반하는 자, 퍼뜨리는 자, 및 보호자다. **유란시아**에 알려진 모든 계층과 형태의 생명체는 이 **아들**들로 인해 발생했지만, 모든 형태의 행성 생명이 **유란시아**에 실존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계에 생명체를 이식{移植}하도록 위임된 **생명 운반자** 단체는, 대개 100명의 상급{上級} 운반자와 100명의 보좌관 그리고 1,000명의 관리인으로 구성된다. **생명 운반자**들이 실제 생명 원형질을 새로운 세계로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생명을 확립시킬 때 새로운 모형을 하기 위해, 그 전에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그들은 배정된 행성에 도착한 후에 생명

species scheme. The manifold by-products of biologic evolution are all essential to the final and full function of the higher intelligent forms of life, notwithstanding that great outward disharmony may prevail from time to time in the long upward struggle of the higher creatures to effect the mastery of the lower forms of life, many of which are sometimes so antagonistic to the peace and comfort of the evolving will creatures.

36:2.18 (398.5) *Number Five World* is concerned wholly with life associated with mind. Each of its satellites is devoted to the study of a single phase of creature mind correlated with creature life. Mind such as man comprehends is an endowment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superimposed on the nonteachable or mechanical levels of mind by the agenc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life patterns are variously responsive to these adjutants and to the different spirit ministries operating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capacity of material creatures to effect spirit response is entirely dependent on the associated mind endowment, which, in turn, has directionized the course of the biologic evolution of these same mortal creatures.

36:2.19 (399.1) *World Number Six* is dedicated to the correlation of mind with spirit as they are associated with living forms and organisms. This world and its six tributaries embrace the schools of creature co-ordination, wherein teachers from both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collaborate with the Nebadon instructors in presenting the highest levels of creature attainment in time and space.

36:2.20 (399.2) *The Seventh Sphere of the Life Carriers* is dedicated to the unrevealed domains of evolutionary creature life as it is related to the cosmic philosophy of the expanding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3. LIFE TRANSPLANTATION

36:3.1 (399.3) Life does not spontaneously appear in the universes; the Life Carriers must initiate it on the barren planets. They are the carriers, disseminators, and guardians of life as it appea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All life of the order and forms known on Urantia arises with these Sons, though not all forms of planetary life are existent on Urantia.

36:3.2 (399.4) The corps of Life Carriers commissioned to plant life upon a new world usually consists of one hundred senior carriers, one hundred assistants, and one thousand custodians. The Life Carriers often carry actual life plasm to a new world, but not always. They sometimes organize the life patterns after arriving on the planet of assignment in accordance with

원형{原型}을 조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유란시아**에서 행성 생명의 기원{起源}이 그랬다.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물질 원형들이 일단 제공된 다음에는, 생명 없는 이 물질에 **생명 운반자**들이 촉매작용을 일으키는데, 생명의 영 섬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며;활성화 되지 못했던 원형들은 즉시 살아있는 물질이 된다.

생명의 섬광은--곧 생명의 신비는-- **생명 운반자**들이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증여된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진행사항을 감독하고, 생명 원형질 자체를 처방하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근본 요소를 제공하는 이는 **우주 어머니 영**이다. 육체에 생기를 주고 정신을 예시하는 에너지 섬광은,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로부터 온다.

생명을 증여할 때, **생명 운반자**들은 그들 개인의 본성을 전혀 전달하지 않으며, 새로운 생명 계층이 기획되는 구체에서도 그렇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단지 생명의 섬광을 시작하고 전달할 뿐인데, 정해진 계획과 원형{原型}들의 물리, 화학, 및 전기{電氣}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 격변을 시작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촉매 같은 존재이며, 이들 없이는 생기를 떨 수 없는, 물질 실존 체제의 요소들을 동요시키고 조직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행성 단체에 속한 **생명 운반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간이 주어져 있으며, 그 행성 시간으로 약 50만 년에 해당한다. 행성 생명이 특정한 발달 상태를 달성하면 이 기간이 만료됨을 가리키는데, 이때 그들은 생명이식{移植} 작업을 종료하며, 그 후에는 그 행성의 생명체에게 새롭거나 추가적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이 설립될 때부터 도덕적 상태의 인간 피조물이 출현할 때까지, 생명 환경을 조종하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순조롭게 방향 잡도록 허락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새로운 세계에서 일하는 **생명 운반자**들이, 의지, 즉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지닌, 어떤 존재를 창출하는 데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때 거기서, 그들의 일이 종료되며--즉 그들의 용무가 끝났으며;그들은 진화 생명체를 더 이상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 이후로는, 살아있는 물체의 진화는 행성 생명 공식 및 원형{原型}에 이미 부여되고 그 속에 설립된, 내재적 본성과 성향의 재능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의지를 실험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며;도덕적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있다.

formulas previously approved for a new adventure in life establishment. Such was the origin of the planetary life of Urantia.

36:3.3 (399.5) When, in accordance with approved formulas, the physical patterns have been provided, then do the Life Carriers catalyze this lifeless material, imparting through their persons the vital spirit spark; and forthwith do the inert patterns become living matter.

36:3.4 (399.6) The vital spark — the mystery of life — is bestowed through the Life Carriers, not by them. They do indeed supervise such transactions, they formulate the life plasm itself, but it is the Universe Mother Spirit who supplies the essential factor of the living plasm. From the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comes that energy spark which enlivens the body and presages the mind.

36:3.5 (399.7) In the bestowal of life the Life Carriers transmit nothing of their personal natures, not even on those spheres where new orders of life are projected. At such times they simply initiate and transmit the spark of life, start the required revolutions of matter in accordance with the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specifications of the ordained plans and patterns. Life Carriers are living catalytic presences which agitate, organize, and vitalize the otherwise inert elements of the material order of existence.

36:3.6 (400.1) The Life Carriers of a planetary corps are given a certain period in which to establish life on a new world, approximately one-half million years of the time of that planet. At the termination of this period, indicated by certain developmental attainments of the planetary life, they cease implantation efforts, and they may not subsequently add anything new or supplemental to the life of that planet.

36:3.7 (400.2) During the ages intervening between life establishment and the emergence of human creatures of moral status, the Life Carriers are permitted to manipulate the life environment and otherwise favorably directionize the course of biologic evolution. And this they do for long periods of time.

36:3.8 (400.3) When the Life Carriers operating on a new world have once succeeded in producing a being with will, with the power of moral decision and spiritual choice, then and there their work terminates — they are through; they may manipulate the evolving life no further. From this point forward the evolution of living things must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endowment of the inherent nature and tendencies which have already been imparted to, and established in, the planetary life formulas and patterns. The Life Carriers are not permitted to experiment or to interfere with will; they are not allowed to dominate or arbitrarily

그들은 **행성 왕자**가 도착함에 따라서 떠날 준비를 하지만, 상급 운반자 중 두 명과 열두 관리인은, 일시적 포기 서약을 함으로써, 생명 원형질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문제에, 충고자로서 그 행성에 무기한 남기로 자원할 수도 있다. 그런 두 **아들**과 열두 동역자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4.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

네바돈 전역에서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각 지역 체계마다, **멜기세덱**들이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해 온 구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거주자들은 체계의 **중간유한절대** 세계로 알려져 있으며, 각 세계에서는 물질적으로 변경된 **멜기세덱 아들**들이, 아들신분의 물질 계층에서 뽑힌 한 **딸**과 짝을 지었다. 그런 중간유한절대 세계의 **어머니 이브**는, 그 세계를 관할하는 체계 본부로부터 파견되는데, **체계 주권자**가 자신의 구체에 있는 **물질 딸**들에게 제시한 요청에 응답하는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지정된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가 선택된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와 **물질 딸**의 자녀들은 **중간유한절대**자로 알려져 있다. 숭고한 피조물인 그런 인종에 해당하는 **멜기세덱** 아버지는, 자신이 독특한 생명 역할을 한 행성을 결국 떠나게 되며, 이 특별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의 **어머니 이브** 역시, 행성에서 낳은 자손 가운데 일곱째 세대가 출현할 때 떠난다. 그런 세계의 지휘는 그때 **어머니 이브**의 딸아들에게 위임된다.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은, 표준시간으로 1,000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장엄한 세계에서 번식하는 존재로서 살고 활동하며; 그때가 되면 스랍 운송(運送)을 이용해서 옮겨진다. 중간유한절대자들은 그 후부터 번식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스랍이 둘러싸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비(非) 물질화 기법이, 그들로부터 번식 특권을 영원히 제거시키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의 현재 상태는, 필사적이라고 간주하거나 영구적이라고 간주하기가 심히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으로 또는 신(神)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도 없다. 이 피조물에는 **조율사**가 거주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존재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들을 필사 존재로 볼 수도 없으며; 어떤 중간유한절대자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바돈**에서 태어난 모든 중간유한절대자가 오늘날 살아 있어서, 그들이 태어난 세계들, 즉 중간에 개재(介在)된 어떤 구체에서, 또는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세계 집단에 있는 중간유한절대 구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세계**. **멜기세덱** 생명 운

influence moral creatures.

36:3.9 (400.4) Upon the arrival of a Planetary Prince they prepare to leave, though two of the senior carriers and twelve custodians may volunteer, by taking temporary renunciation vows, to remain indefinitely on the planet as advisers in the matter of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life plasm. Two such Sons and their twelve associates are now serving on Urantia.

4. MELCHIZEDEK LIFE CARRIERS

36:4.1 (400.5) In every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throughout Nebadon there is a single sphere whereon the Melchizedeks have functioned as life carriers. These abodes are known as the system *midsonite* worlds, and on each of them a materially modified Melchizedek Son has mated with a selected Daughter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The Mother Eves of such midsonite worlds are dispatched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of jurisdiction, having been chosen by the designated Melchizedek life carrier from among the numerous volunteers who respond to the call of the System Sovereign addressed to the Material Daughters of his sphere.

36:4.2 (400.6) The progeny of a Melchizedek life carrier and a Material Daughter are known as *midsoniters*. The Melchizedek father of such a race of supernal creatures eventually leaves the planet of his unique life function, and the Mother Eve of this special order of universe beings also departs upon the appearance of the seventh generation of planetary offspring. The direction of such a world then devolves upon her eldest son.

36:4.3 (400.7) The midsonite creatures live and function as reproducing beings on their magnificent worlds until they are one thousand standard years of age; whereupon they are translated by seraphic transport. Midsoniters are nonreproducing beings thereafter because the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which they pass through in preparation for enseraphimizing forever deprives them of reproductive prerogatives.

36:4.4 (400.8) The present status of these beings can hardly be reckoned as either mortal or immortal, neither can they be definitely classified as human or divine. These creatures are not Adjuster indwelt, hence hardly immortal. But neither do they seem to be mortal; no midsoniter has experienced death. All midsoniters ever born in Nebadon are alive today, functioning on their native worlds, on some intervening sphere, or on the Salvington midsonite sphere in the finaliters' group of worlds.

36:4.5 (401.1) *The Salvington Worlds of the*

반자들은 물론, 그와 관련된 **어머니 이브**들도, 체계의 중간유한절대 구체들로부터 **살빙톤** 회로의 완결성취자 세계들로 가는데, 거기서 그들의 자손 또한 만나게 돼있다.

이 점에 대해서, **살빙톤** 회로에 있는 다섯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가 **네바돈**의 완결성취자 세계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겠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과 **물질 딸**들의 자녀는, 완결성취자들의 일곱째 세계, 즉 **살빙톤**의 중간유한절대 구체를 본적지로 삼는다.

완결성취자들의 일곱 주요 세계의 위성들은, **네바돈**에서 임무를 실행할지도 모르는,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 인격체들의 회합{會合} 장소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대학**을 포함하는 490개 세계 가운데 문화 세계들과 훈련 구체들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학교들과 수많은 금지된 지대가 있다. 이런 제한은 완결성취자들의 관할 하에 있는 49개 구체에서 특히 그렇다.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의 목적은 현재 알려지지 않지만, 이 인격체들이 우주 진화에서 미래의 어떤 결말을 준비하면서 일곱째 완결성취자 세계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중간유한절대 인종들에 관한 우리 질문은 항상 완결성취자들에게 회부되며, 완결성취자들은 항상 자신의 피보호자들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간유한절대자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르본톤**에 있는 각 지방우주마다 신비스런 이 존재들을 모으는 그런 단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은, 궁극자 하나님**이 그들의 중간유한절대 자녀들에게, 초월적이고 영원한 유한절대 영을 언젠가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5. 일곱 보조 정신_영

원시 세계에서는, 일곱 보조 정신_영의 현존이 유기체{有機體}의 진화 과정을 좌우하며; 진화가 왜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이것이 설명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서, 하위 계층의 지성{知性} 생명체들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영**의 정신 사역의 기능을, 이 보조체들이 대표한다. 보조체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며, **우주 어머니 영**이 그 영역의 물질 정신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정신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靈}들이 다양하게 작용한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은: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조인, 경배, 및 지혜 등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정신_영들은 특이한 충동으로 모든

Finaliters.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as well as the associated Mother Eves, go from the system midsonite spheres to the finaliters'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where their offspring are also destined to forgather.

36:4.6 (401.2) It should be explained in this connection that the fifth group of seven primary world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Nebadon worlds of the finaliters. The children of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and the Material Daughters are domiciled on the seventh world of the finaliters, the Salvington midsonite sphere.

36:4.7 (401.3) The satellites of the seven primary worlds of the finaliters are the rendezvou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who may be executing assignments in Nebadon. While the ascending mortals go about freely on all of the cultural worlds and training spheres of the 490 worlds comprising the Melchizedek University, there are certain special schools and numerous restricted zones which they are not permitted to enter.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forty-nine spher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inaliters.

36:4.8 (401.4) The purpose of the midsonite creatures is not at present known, but it would appear that these personalities are forgathering on the seventh finaliter world in preparation for some future eventuality in universe evolution. Our inquiries concerning the midsonite races are always referred to the finaliters, and always do the finaliters decline to discuss the destiny of their wards. Regardless of our uncertainty as to the future of the midsoniters, we do know that every local universe in Orvonton harbors such an accumulating corps of these mysterious beings. It is the belief of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that their midsonite children will some day be endowed with the transcendental and eternal spirit of absonity by God the Ultimate.

5.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36:5.1 (401.5) It is the presence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n the primitive worlds that conditions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that explains why evolution is purposeful and not accidental. These adjutants represent that function of the mind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which is extended to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t life through the operations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adjutants are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constitute her personal ministry to the material minds of the realms. Wherever and whenever such mind is manifest, these spirits are variously functioning.

36:5.2 (401.6)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called by names which are the equivalents of the following designations: intuition, understanding,

인간거주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동료들이 한 영받고 활동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범위와는 전혀 별개로, 표현에 대한 감수성 수용능력을 각자 추구한다.

생명 운반자 본부에서 보조 영들의 중앙 거점 은, 어떤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지성적 상태의 어떤 일정한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서든지, 보조체들의 정신 기능 범위와 질을 **생명 운반자** 감독관들에게 표시해 준다. 이런 생명_정신의 주입{注入}은, 처음 다섯 보조체를 위해 정신이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완전한 지표{指標}다. 그러나 여섯째와 일곱째 --곧 경배와 지혜-- 보조체를 고려할 때, 이 중앙 거점은 다만 질적 작용만 기록한다.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의 양적{量的} 활동은, **살빙톤**에서 **신성한 사역자**의 현존 바로 앞에 등록되는데, **우주 어머니 영**이 몸소 겪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은, 새로운 행성으로 갈 때 항상 **생명 운반자**들과 동행하지만, 실재{實在}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회로{回路}에 더 가깝다. 일곱 우주 보조체 영은, **신성한 사역자**의 우주 현존과 동떨어진 인격체로서 작용하지 않으며; 실제로 **신성한 사역자**의 한 의식 수준이고, 그들을 창조한 어머니의 행동과 현존에 항상 종속된다.

우리는 이 일곱 보조 정신_영을 적당히 표현할만한 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체험적 정신을 돌보는 존재이며, 진화하여 달성되는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직관의 기질**{氣質} --모든 정신 피조물의, 신속한 지각{知覺} 작용, 원시적인 육체적 및 타고난 반사 본능, 그리고 방향 탐지 재능 및 기타 자아_보존 재능; 하등 동물 생명체 계층에서 매우 광범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보조체이고, 학습력이 없는 기계적 정신 수준과 광범하게 기능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보조체다.

2. **이해의 기질** --조화하려는 충동, 자발적이고 외견상 자동적으로 보이는 관념들을 연합시킴. 이것은 획득된 지식을 조화시키는 재능, 즉 신속하게 추론하고, 재빨리 판단하며, 즉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이다.

3. **용기의 기질** --곧 충성하는 재능--인격있는 존재 속에서, 성품을 획득하는 기초요, 도덕적 끈기와 영적 용감성의 지적 뿌리. 사실로부터 깨우치고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 이것은 지성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스스로_방향잡는 경로를 통해서 진화해 상승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비결이 된다.

courage, knowledge, counsel, worship, and wisdom. These mind-spirits send forth their influence into all the inhabited worlds as a differential urge, each seeking receptivity capacity for manifestation quite apart from the degree to which its fellows may find reception and opportunity for function.

36:5.3 (401.7) The central lodgments of the adjutant spirits on the Life Carrier headquarters world indicate to the Life Carrier supervisors the extent and quality of the mind function of the adjutants on any world and in any given living organism of intellect status. These life-mind emplacements are perfect indicators of living mind function for the first five adjutants. But with regard to the sixth and seventh adjutant spirits — worship and wisdom — these central lodgments record only a qualitative function. The quantitative activity of the adjutant of worship and the adjutant of wisdom is registered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on Salvington, being a personal experienc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36:5.4 (402.1)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lways accompany the Life Carriers to a new planet, but they should not be regarded as entities; they are more like circuits. The spirits of the seven universe adjutants do not function as personalities apart from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they are in fact a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Divine Minister and are always subordinate to the action and presence of their creative mother.

36:5.5 (402.2) We are handicapped for words adequately to designate these seven adjutant mind-spirits. They are ministers of the lower levels of experiential mind, and they may be described, in the order of evolutionary attainment, as follows:

36:5.6 (402.3) 1. *The spirit of intuition* — quick perception, the primitive physical and inherent reflex instincts, the directional and other self-preservative endowments of all mind creations; the only one of the adjutants to function so largely in the lower orders of animal life and the only one to make extensive functional contact with the nonteachable levels of mechanical mind.

36:5.7 (402.4) 2. *The spirit of understanding* — the impulse of co-ordination, the spontaneous and apparently automatic association of ideas. This is the gift of the co-ordination of acquired knowledge, the phenomenon of quick reasoning, rapid judgment, and prompt decision.

36:5.8 (402.5) 3. *The spirit of courage* — the fidelity endowment — in personal beings, the basis of character acquirement and the intellectual root of moral stamina and spiritual bravery. When enlightened by facts and inspired by truth, this becomes the secret of the urge of evolutionary ascension by the channels of intelligent and conscientious self-direction.

4. 지식의 기질 --모험하고 발견하려는 호기심의 모체{母體}, 즉 과학적 기질; 용기의 기질과 조연의 기질의 안내자이며 충실한 동료; 유용하고 진취적인 성장 경로로 들어가도록 용기의 자질을 지시하려는 충동.

5. 조연의 기질 --사회적 충동, 종{種}끼리 협동하는 재능;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는 역량; 하등 피조물끼리 군생{群生}하려는 본능의 근원.

6. 경배의 기질 --종교적 자극, 정신을 가진 피조물을 두 가지 기본 펠사자 실존 계층으로 분리시키는 특이한 첫 충동. 경배의 기질은, 관련된 동물들, 정신 재능은 있지만 혼은 없는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구별시킨다. 경배는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7. 지혜의 기질 --모든 도덕적 피조물이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진보하려는 선천적인 경향. 이것은 보조체 중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모든 보조체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시키는 영이다. 이 영은 정신을 지닌 피조물이 실존에서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타고난 충동의 비결이며; 살아있는 것들의 이 재능은,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불가해한 역량, 그리고 살아남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유기체의 정신 속에서 다른 여섯 정신 사역자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 체험과 현재 기회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설명한다. 지혜는 지적 성취의 절정이다. 지혜는, 순전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실존이 달성할 목표다.

보조 정신 영들은 체험함으로 성장하지만, 결코 인격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진화하며, 동물 계층에 있는 처음 다섯 가지 기능은, 일곱 가지 전체가 인간 지능으로서 작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동물과의 이런 관계는, 보조체들로 하여금 인간 정신으로서 더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며; 따라서 동물은 사람의 육체적 진화뿐 아니라, 지적{知的} 진화에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우주의 생명 없는 힘과 관련돼 있음과 거의 똑같이,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정신 보조체들은 지성적 신분을 가진 피조물 생명체와 관련된다.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있는 정신 회로에서 매우 귀중한 봉사를 수행하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인데, 이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또한 보조체를 받기 전의 정신 수준인, 학습력 없는 정신, 즉 기계적 정신 수준에서 통제관과 지휘자로서 일한다.

살아있는 정신은,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출현하기 전에는, 총괄 물리 통제관들

36:5.9 (402.6) 4. *The spirit of knowledge* — the curiosity-mother of adventure and discovery, the scientific spirit; the guide and faithful associate of the spirits of courage and counsel; the urge to direct the endowments of courage into useful and progressive paths of growth.

36:5.10 (402.7) 5. *The spirit of counsel* — the social urge, the endowment of species co-operation; the ability of will creatures to harmonize with their fellows; the origin of the gregarious instinct among the more lowly creatures.

36:5.11 (402.8) 6. *The spirit of worship* — the religious impulse, the first differential urge separating mind creatures into the two basic classes of mortal existence. The spirit of worship forever distinguishes the animal of its association from the soulless creatures of mind endowment. Worship is the badge of spiritual-ascension candidacy.

36:5.12 (402.9) 7. *The spirit of wisdom* — the inherent tendency of all moral creatures towards orderly and progressive evolutionary advancement. This is the highest of the adjutants, the spirit co-ordinator and articulator of the work of all the others. This spirit is the secret of that inborn urge of mind creatures which initiates and maintains the practical and effective program of the ascending scale of existence; that gift of living things which accounts for their inexplicable ability to survive and, in survival, to utilize the co-ordination of all their past experience and present opportunities for the acquisition of all of everything that all of the other six mental ministers can mobilize in the mind of the organism concerned. Wisdom is the acme of intellectual performance. Wisdom is the goal of a purely mental and moral existence.

36:5.13 (403.1) The adjutant mind-spirits experientially grow, but they never become personal. They evolve in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first five in the animal orders is to a certain extent essential to the function of all seven as human intellect. This animal relationship makes the adjutants more practically effective as human mind; hence animals are to a certain extent indispensable to man's intellectual as well as to his physical evolution.

36:5.14 (403.2) These mind-adjutants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re related to creature life of intelligence status much as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re related to the nonliving forces of the universe. They perform invaluable service in the mind circuits on the inhabited worlds and are effective collaborators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who also serve as controllers and directors of the preadjutant mind levels, the levels of nonteachable or mechanical mind.

36:5.15 (403.3) Living mind, prior to the appearance of capacity to learn from experience, is the ministry

이 돌보는 영역이다. 피조물 정신은, 신성{神性}을 인식하고 **신격**을 경배하는 역량을 획득하기 전에는, 보조 영들의 독자적 영역이다. 피조물의 지능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창조된 정신은 즉시 초월정신이 되는데,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영 순환 속으로 즉각 회로화 된다.

신성한 사역자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거룩한 영**이며, 보조 정신_영들은 그의 몸소 현존하는 영의 다양하고 매우 영적인 기능과 어떤 면에서도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들은 진화하는 사람 안에서 바로 이 영이 출현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앞서며, 그 출현을 위해 준비한다. 보조체들은, **우주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방우주의 살아있는 물질 피조물과 다양한 접촉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선{先}인격 수준에서 활동할 때에는 **지존하신 분** 안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영적 정신은 영_에너지의 형태화 또는 물리적_에너지의 현상이다. 인간 정신은, 인격있는 정신일지라도, 영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생존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정신은 신성{神性}이 중여한 것이지만, 영 통찰력 없이 작용할 때, 그리고 경배 드리면서 생존을 갈망하는 역량이 없을 때에는 불멸하지 않는다.

6. 살아있는 세력

생명은 기계적인 동시에 생동적이다--곧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유란시아**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식물 및 동물 생명체의 원형질 형태를 이해하는 데 늘 진보하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생명체는 모든 에너지 형태화와는 다른 어떤 것이며; 육체를 가진 피조물의 물질적 생명조차 물질에 내재하지 않는다.

물질인 사물은 독립된 실존을 누릴지 모르지만,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발생된다. 정신은 오직 선재{先在}하는 정신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영은 오직 영 선조들로부터 기원된다. 피조물이 생명체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직 창조자 인격체 또는 창조적 세력만이, 활성화시키는 살아있는 섬광을 제공할 수 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물질 형태 또는 육체 원형{原型}을 조직할 수 있지만, **영**이 생명의 최초 섬광을 제공하고 정신이라는 재능을 중여한다. 심지어 **생명 운반자들이 살빙톤** 세계에서 조직하는 살아있는 실험용 생명체 형태도, 번식 능력은 항상 결여돼 있다. 생명 공식과 활력 원형들이 정확하게 조립되고 알맞게 조직화 됐을 때, 한 **생명 운반자**의 현존은 생명체를 태동시키기기에 충분하지만, 그런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필수적인 두 속성이--곧 정신 재능과 번식 능력--결여돼 있다. 동물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지방

domai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Creature mind, before acquiring the ability to recognize divinity and worship Deity, is the exclusive domain of the adjutant spirits. With the appearance of the spiritual response of the creature intellect, such created minds at once become superminded, being instantly encircled in the spirit cycle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36:5.16 (403.4)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in no manner directly related to the diverse and highly spiritual function of the spirit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the Holy Spirit of the inhabited worlds; but they are functionally antecedent to, and preparatory for, the appearance of this very spirit in evolutionary man. The adjutants afford the Universe Mother Spirit a varied contact with, and control over, the material living creatures of a local universe, but they do not repercuss in the Supreme Being when acting on prepersonality levels.

36:5.17 (403.5) Nonspiritual mind is either a spirit-energy manifestation or a physical-energy phenomenon. Even human mind, personal mind, has no survival qualities apart from spirit identification. Mind is a divinity bestowal, but it is not immortal when it functions without spirit insight, and when it is devoid of the ability to worship and crave survival.

6. LIVING FORCES

36:6.1 (403.6) Life is both mechanistic and vitalistic — material and spiritual. Ever will Urantia physicists and chemists progres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otoplasmic forms of vegetable and animal life, but never will they be able to produce living organisms. Life is something different from all energy manifestations; even the material life of physical creatures is not inherent in matter.

36:6.2 (403.7) Things material may enjoy an independent existence, but life springs only from life. Mind can be derived only from pre-existent mind. Spirit takes origin only from spirit ancestors. The creature may produce the forms of life, but only a creator personality or a creative force can supply the activating living spark.

36:6.3 (404.1) Life Carriers can organize the material forms, or physical patterns, of living beings, but the Spirit provides the initial spark of life and bestows the endowment of mind. Even the living forms of experimental life which the Life Carriers organize on their Salvington worlds are always devoid of reproductive powers. When the life formulas and the vital patterns are correctly assembled and properly organized, the presence of a Life Carrier is sufficient to initiate life, but all such living organisms are lacking in two essential attributes

우주 어머니 영의 선물인데, 일곱 보조 정신_영을 통해서 작용하며, 한편 번식할 수 있는 피조물 역량은, **생명 운반자**들이 개시한, 선조 생명 원형질에, **우주 영**이 특유하게 직접 나눠준 것이다.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 원형의 설계를 완료했을 때, 즉 에너지 체계를 조직한 후에, 추가적인 어떤 현상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며; “생명의 숨결”이, 생명 없는 이 형체 속으로 주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체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섬광을 실제로 제공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입된 생명이 바닥나면, 남아있는 물질 육신은 다시 죽은 물체가 된다. 증여된 생명이 고갈될 때, 육신은 물질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 육신은 에너지_물질에 속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연합체에 **생명 운반자**들이 전달했던 그 생명 재능을 위해 일시적 운반체로서 작동하도록,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 우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생명 운반자들이 식물과 동물에 증여한 생명은, 그 식물이나 동물이 죽었을 때 **생명 운반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런 물체에서 떠나가는 생명은 독자성(獨自性)도 없고 인격도 없으며; 그 생명은 죽은 후에 개별적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실존하던 동안, 그리고 물질로 된 본체 속에 머물렀을 때, 생명은 변화를 겪었으며; 에너지의 진화를 겪었고, 우주에서 시공우주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만 살아남으며; 개별 생명체로는 살아남지 않는다. 필사 피조물의 생존은, 필사 정신 속에 있는 불멸하는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우리가 생명을 “에너지”와 “세력{힘}”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아니다. 세력과 에너지는 다양하게 인력에 반응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다. 원형(原型) 역시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데, 인력에 반응해야 할 모든 책무를 이미 충족시킨 에너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명은 어떤 배열된 원형(原型) 또는 그 밖의 분리된 --물질적, 정신적, 또는 영적-- 에너지 체계에 생기(生氣)를 불어넣은 것이다.

진화 행성들에는,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생명 합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다. **생명 운반자**들의 전기화학적 공식을 따르는 물리적 유기체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지만, **생명_활성화 섬광**의 본질과 근원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을 **따라서** 흐른다는 것을 안다. **오름 영**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칠중{七重}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행성에 생명이 증여되는 초기 사건에, 감독하는 **오름 영**이 어떤 기법으로 참여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태고 항존자** 역시, 새로운 세계에서 이 생명 개시{開始}에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주 어머니 영**이 생

— mind endowment and reproductive powers. Animal mind and human mind are gift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unctioning through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while creature ability to reproduce is the specific and personal impartation of the Universe Spirit to the ancestral life plasm inaugurated by the Life Carriers.

36:6.4 (404.2) When the Life Carriers have designed the patterns of life, after they have organized the energy systems, there must occur an additional phenomenon; the “breath of life” must be imparted to these lifeless forms. The Sons of God can construct the forms of life, but it is the Spirit of God who really contributes the vital spark. And when the life thus imparted is spent, then again the remaining material body becomes dead matter. When the bestowed life is exhausted, the body returns to the bosom of the material universe from which it was borrowed by the Life Carriers to serve as a transient vehicle for that life endowment which they conveyed to such a visible association of energy-matter.

36:6.5 (404.3) The life bestowed upon plants and animals by the Life Carriers does not return to the Life Carriers upon the death of plant or animal. The departing life of such a living thing possesses neither identity nor personality; it does not individually survive death. During its existence and the time of its sojourn in the body of matter, it has undergone a change; it has undergone energy evolution and survives only as a part of the cosmic forces of the universe; it does not survive as individual life. The survival of mortal creatures is wholly predicated on the evolvment of an immortal soul within the mortal mind.

36:6.6 (404.4) We speak of life as “energy” and as “force,” but it is really neither. Force-energy is variously gravity responsive; life is not. Pattern is also nonresponsive to gravity, being a configuration of energies that have already fulfilled all gravity-responsive obligations. Life, as such, constitutes the animation of some pattern-configured or otherwise segregated system of energy — material, mindal, or spiritual.

36:6.7 (404.5) There are some things connected with the elaboration of life on the evolutionary planets which are not altogether clear to us. We fully comprehend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electrochemical formulas of the Life Carriers, but we do not wholly understand the nature and source of the *life-activation spark*. We know that life flows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and by the Spirit. It is more than possible that the Master Spirits are the sevenfold channel of the river of life which is poured out upon all creation. But we do not comprehend the technique whereby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participates in the initial episode of life bestowal on a new planet. The Ancients of Days, we are confident, also have

명 없는 원형을 실제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그런 원형질에 유기체의 번식 특권을 첨부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최상급 창조주**들을 가리키는 **칠중 하나님**의 수준임을 우리가 목격하지만;그밖에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보다 더 알지 못한다--다만, 개념은 **아버지** 안에, 표현은 **아들** 안에, 생명의 실현은 **영** 안에 고유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유란시아**에 참관인으로 머물고, **감독하는 계시 단체의 멜기세덱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 자격으로 행동하는 **보론다덱 아들**이 작성했음]

some part in this inauguration of life on a new world, but we are wholly ignorant of the nature thereof. We do know that the Universe Mother Spirit actually vitalizes the lifeless patterns and imparts to such activated plasm the prerogatives of organismal reproduction. We observe that these three are th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sometimes designated as the Supreme Creators of time and space; but otherwise we know little more than Urantia mortals — simply that concept is inherent in the Father, expression in the Son, and life realization in the Spirit.

^{36:6.8 (405.1)} [Indited by a Vorondadek Son stationed on Urantia as an observer and acting in this capacity by request of the Melchizedek Chief of the Supervising Revelatory Corps.]

제37편. 지방우주의 인격체

⇨ 036

유랜시아 책

038 ⇨

II 부. 지방우주

제37편
지방우주의 인격체

섹션

소개

1. 우주 조력자
2. 찬란한 저녁별
3. 천사장
4. 지고 보좌관
5. 고위 책임자
6. 천상의 감독자
7. 맨션 세계 교사
8. 배정된 고등 영 계층
9. 지방우주의 영구 시민
10. 다른 지방우주 집단

소개

네바돈에 있는 모든 인격체의 꼭대기에는, 지방우주의 아버지이자 주권자인, **창조주**이자 **오름 아들**인 **미가엘**이 있다. 신성{神性}에서 동등하고, 보완하는 창조 속성을 가진 분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 즉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다. 그리고 이 창조자들은, 아주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네바돈**의 모든 토착 피조물의 **아버지_아들** 및 **영_어머니**이다.

앞에 있는 문서들은 창조된 아들신분 계층들을 다뤘으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돌보는 영들과 아들신분의 상승하는 계층들에 대해 묘사하게 될 것이다. 본 문서는, 주로 사이에 끼어있는 집단, 즉 **우주 조력자**들을 다루겠지만, **네바돈**에 주둔하는 특정한 고등 영들과, 지방우주에서 영구 시민권을 지닌 어떤 계층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PAPER 37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niverse Aids
2. The Brilliant Evening Stars
3. The Archangels
4. Most High Assistants
5. High Commissioners
6. Celestial Overseers
7. Mansion World Teachers
8. Higher Spirit Orders of Assignment
9.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10. Other Local Universe Groups

INTRODUCTION

37:0.1 (406.1) AT THE head of all personality in Nebadon stands the Creator and Master Son, Michael, the universe father and sovereign. Co-ordinate in divinity and complemental in creative attributes i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And these creators are in a very literal sense the Father-Son and the Spirit-Mother of all the native creatures of Nebadon.

37:0.2 (406.2) Preceding papers have dealt with the created orders of sonship; succeeding narratives will portray the ministering spirits and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This paper is chiefly concerned with an intervening group, the Universe Aids, but it will also give brief consideration to certain of the higher spirits stationed in Nebadon and to certain of the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in the local universe.

1. 우주 조력자

일반적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독특한 계층 가운데 다수는 계시되지 않지만, 본 문서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주 조력자**는 다음의 일곱 계층을 포함한다:

1. **빛나는 새벽별.**
2. **찬란한 저녁별.**
3. **천사장.**
4. **지고 보좌관.**
5. **고위 책임자.**
6. **천상의 감독자.**
7. **맨션세계 교사.**

우주 조력자 중에서 첫째 계층에 해당하는 **빛나는 새벽별**의 경우에, 각 지방우주마다 꼭 한 명밖에 없으며, 그는 한 지방우주에서 모든 토착 피조물 가운데 첫 태생이다. 우리 우주의 **빛나는 새벽별**은 **살빙톤**의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온 **네바돈**에서 최고 행정관인데, **주권자 아들**의 개인 대행자로서, 그리고 그의 창조 배우자를 대변하는 자로서 활약한다.

네바돈의 초기 시대 동안, **가브리엘**은 오직 **미가엘** 및 **창조적 영**과만 일했다. 우주가 성장하고 경영상 문제들이 배가되자, 계시되지 않은 보좌관들로 구성된 개인 참모진이 그에게 제공됐으며, 결국 이 집단은 **저녁별**이라는 **네바돈** 단체가 창조됨으로 확장됐다.

2. 찬란한 저녁별

멜기세덱들이 이 찬란한 피조물을 계획했고, 그 다음에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이들을 낳았다. 그들은 여러 자격으로 근무하지만, 주로 지방우주의 우두머리 행정관 **가브리엘**의 연락장교로서 근무한다. **네바돈**의 각 성좌와 체계의 수도 {首都}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 존재가 그의 대행자로서 활동한다.

네바돈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가브리엘**은 **살빙톤**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비밀회에서 직권상 의장 또는 참관인이며, 1,000개에 달하는 이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가브리엘**을 대행하는데, 그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최고천사들이 이 제한조건을 보충해 준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 단체를 위해 비슷한 봉사를 수행한다.

경영 임무에 직접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가브**

1. THE UNIVERSE AIDS

37:1.1 (406.3) Many of the unique orders generally grouped in this category are unrevealed, but as presented in these papers, the Universe Aids include the following seven orders:

- 37:1.2 (406.4) 1. Bright and Morning Stars.
- 37:1.3 (406.5) 2. Brilliant Evening Stars.
- 37:1.4 (406.6) 3. Archangels.
- 37:1.5 (406.7) 4. Most High Assistants.
- 37:1.6 (406.8) 5. High Commissioners.
- 37:1.7 (406.9) 6. Celestial Overseers.
- 37:1.8 (406.10) 7. Mansion World Teachers.

37:1.9 (406.11) Of the first order of Universe Aids, the Bright and Morning Stars, there is just one in each local universe, and he is the first-born of all creatures native to a local universe.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our universe is known as Gabriel of Salvington. He is the chief executive of all Nebadon, functioning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overeign Son and as spokesman for his creative consort.

37:1.10 (406.12) During the earlier times of Nebadon, Gabriel worked quite alone with Michael and the Creative Spirit. As the universe grew and administrative problems multiplied, he was provided with a personal staff of unrevealed assistants, and eventually this group was augmented by the creation of the Nebadon corps of Evening Stars.

2. THE BRILLIANT EVENING STARS

37:2.1 (407.1) These brilliant creatures were planned by the Melchizedeks and were then brought into being by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hey serve in many capacities but chiefly as liaison officers of Gabriel, the local universe chief executive. One or more of these beings function as his representatives at the capital of every constellation and system in Nebadon.

37:2.2 (407.2) As chief executive of Nebadon, Gabriel is ex officio chairman of, or observer at, most of the Salvington conclaves, and as many as one thousand of these are often in session simultaneousl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represent Gabriel on these occasions; he cannot be in two places at the same time, and these superangels compensate for this limitation. They perform an analogous service for the corp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37:2.3 (407.3) Though personally occupied with

리엘은 **찬란한 저녁별**들을 통해서 모든 다른 국면의 우주 생명체 및 직무와 접촉을 유지한다. 그들은 그가 행성 여행을 할 때 항상 그와 함께 하며, 그의 개인 대표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각 행성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 임무에서 그들은 때로 “**주(主)**의 천사”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과 집회 앞에서 **빛나는 새벽별**을 대행하기 위해 자주 **우버사**에 가지만, **오르본톤**의 경계선 너머로 여행하는 일은 드물다.

찬란한 저녁별들은 독특한 이중 계층인데, 고위급{高位級}으로 창조된 자들을 더러 포함하고, 나머지는 달성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네바돈**의 이 최고천사 단체는 지금 13,641명이다. 창조된 고위급은 4,832명이고, 한편 8,809명은 높임받아 봉사하는 이 목표를 달성한 상승한 영이다. 상승한 이 **저녁별** 가운데 다수는 우주 생애를 스라빔으로서 시작했으며; 그 외에는 계시되지 않은 수준의 피조 생명체로부터 상승했다. 하나의 달성 목표로서, 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되지 않는 한, 이 높은 단체는 상승하는 후보자에게 결코 접근하지 않는다.

두 가지 유형의 **찬란한 저녁별**은, 모론시아 인격체와 특정한 유형의 초월_필사 물질 존재들에게 쉽게 눈에 띈다. 흥미롭고 다양한 이 계층에 해당하는 피조 존재들은,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는 영 세력을 소유한다.

이 최고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가바리아**인데, **네바돈**에 있는 이 계층 중에서 첫_태생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성공적인 증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가바리아**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돌보는 일에 배정됐으며, **유란시아** 시간으로 지난 1,900년 동안 그의 동역자 **갈란티아**가 **예루셈**에 본부를 유지했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낸다. **갈란티아**는 이런 높은 지위를 처음으로 달성한, 상승하는 최고천사다.

습관적으로 여러 임무에 쌍으로 연합하는 것 외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집단을 이루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임무에 광범하게 배정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임명됐을 때에는 결코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쌍으로 일한다--곧 하나는 창조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한 **저녁별**이다.

저녁별들의 고귀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증여되는 **아보날 아들**들이 행성 사명에 임할 때 동행하는 것인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됐을 때 **가브리엘**이 동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두 최고천사는 그런 사명을 갖는 뛰어난 인격체인데, 이 이행임무에 배정된 천사장 및 다른 존재들의 공동지휘관으로서 근무한다. 의미심장한 시기와 시대에, **아보날** 증여 **아들**에게, “네 형제의 사업을

administrative duties, Gabriel maintains contact with all other phases of universe life and affairs through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y always accompany him on his planetary tours and frequently go on special missions to the individual planets as his personal representatives. On such assignments they have sometimes been known as “the angel of the Lord.” They frequently go to Uversa to represen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before the courts and assemblies of the Ancients of Days, but they seldom journey beyond the confines of Orvonton.

37:2.4 (407.4)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re a unique twofold order, embracing some of created dignity and others of attained service. The Nebadon corps of these superangels now numbers 13,641. There are 4,832 of created dignity, while 8,809 are ascendant spirits who have attained this goal of exalted service. Many of these ascendant Evening Stars started their universe careers as seraphim; others have ascended from unrevealed levels of creature life. As an attainment goal this high corps is never closed to ascension candidates so long as a universe is not settled in light and life.

37:2.5 (407.5) Both types of Brilliant Evening Stars are easily visible to morontia personalities and certain types of supermortal material beings. The created beings of this interesting and versatile order possess a spirit force which can be manifested independently of their personal presence.

37:2.6 (407.6) The head of these superangels is Gavalia, the first-born of this order in Nebadon. Since the return of Christ Michael from his triumphant bestowal on Urantia, Gavalia has been assigned to the ascendant mortal ministry, and for the last nineteen hundred Urantia years his associate, Galantia, has maintained headquarters on Jerusem, where he spends about half of his time. Galantia is the first of the ascendant superangels to attain this high estate.

37:2.7 (407.7) No grouping or company organization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exists other than their customary association in pairs on many assignments. They are not extensively assigned on missions pertaining to the ascendant career of mortals, but when thus commissioned, they never function alone. They always work in pairs — one a created being, the other an ascendant Evening Star.

37:2.8 (407.8) One of the high duties of the Evening Stars is to accompany the Avonal bestowal Sons on their planetary missions, even as Gabriel accompanied Michael on his Urantia bestowal. The two attending superangels are the ranking personalities of such missions, serving as cocommanders of the archangels and all others assigned to these undertakings. It is the senior of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존재는 이 최고천사 가운데 선임 지휘관이다.

비슷한 이 최고천사 쌍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행성 단체에 배정되는데, 이 **아들**들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증여 이후 시대를 안정시키거나, 영적 시대를 수립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그런 임무에서 **저녁별**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 아들** 단체의 연락원으로서 근무한다.

저녁별의 세계. 일곱 **살빙톤** 세계 중에서 여섯째 집단과 그에 종속된 42개의 위성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경영에 배정돼 있다. 이 최고천사 중에서 창조된 계층이 일곱 주요 세계를 관장하며, 한편 상승한 **저녁별**들은 종속된 위성(衛星)들을 관리한다.

처음 세 세계의 위성들은, 지방우주의 영(靈) 인격체들에게 헌신하는 **교사 아들** 및 **저녁별**들의 학교에 제공돼 있다. 그 다음 세 집단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훈련시키는, 비슷한 합동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일곱째 세계의 위성들은, **교사 아들**, **저녁별**, 및 완결성취자들의 삼중 심의를 위해 예비돼 있다. 최근에 이 최고천사들은 **완결성취 단체**의 지방우주 업무에 밀접하게 관계해 왔으며, 오랫동안 **교사 아들**들과 연합해 왔다. 완결성취자 작업 집단에 배속된 **인력 사자**{使者}들과 **저녁별**들 사이에는, 엄청난 권능과 중요성을 갖는 접촉이 이뤄진다. 일곱째 주요 세계 자체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서 예비돼 있는데, 이 문제들은 **지존자 하나님** 인격의 연방우주 현시(顯示)가 완성되어 출현함에 따라서, **교사 아들**, 완결성취자들, 및 **저녁별**들 사이에서 생기게 될 미래의 관계와 관련된다.

these superangel commanders who, at the significant time and age, bids the Avonal bestowal Son, “Be about your brother’s business.”

37:2.9 (408.1) Similar pairs of these superangels are assigned to the planetary corps of Trinity Teacher Sons that functions to establish the postbestowal or dawning spiritual age of an inhabited world. On such assignments the Evening Stars serve as liaisons between the mortals of the realm and the invisible corps of Teacher Sons.

37:2.10 (408.2) *The Worlds of the Evening Stars.* The sixth group of seven Salvington worlds and their forty-two tributary satellites are assign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 seven primary worlds are presided over by the created orders of these superangels, while the tributary satellites are administered by ascendant Evening Stars.

37:2.11 (408.3) The satellites of the first three worlds are devoted to the schools of the Teacher Sons and the Evening Stars dedicated to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 The next three groups are occupied by similar joint schools devoted to the training of ascending mortals. The seventh-world satellites are reserved for the triune deliberations of the Teacher Sons, the Evening Stars, and the finaliters. During recent times these superangels have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local universe work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y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the Teacher Sons. There exists a liaison of tremendous power and import between the Evening Stars and the Gravity Messengers attached to the finaliter working groups. The seventh primary world itself is reserved for those unrevealed matters which pertain to the future relationship that will obtain between the Teacher Sons, the finaliters, and the Evening Stars consequent upon the completed emergence of the super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3. 천사장

천사장은 **창조주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지방우주에 많은 숫자로 탄생돼 있는 높은 영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이며, 최근에 등록할 당시에 거의 80만 명이 **네바돈**에 있었다.

천사장은, 평소에는 **가브리엘**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는 소수의 지방우주 인격체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어떤 방면으로도 우주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데, 피조물을 생존시키는 업무,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를 촉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대개의 경우에 천사장은 **빛나는 새벽별**의 지시를 받지 않는 반면, 때로 그의 권세로 활동하기도 한다. 너희 세계에 생명

3. THE ARCHANGELS

37:3.1 (408.4) Archangels are the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the highest type of high spirit being produced in large numbers in a local universe, and at the time of the last registry there were almost eight hundred thousand in Nebadon.

37:3.2 (408.5) Archangels are one of the few groups of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not norma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Gabriel. They are not in any manner concerned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being dedicated to the work of creature survival and to the furtherance of the ascending career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While not ordinarily subject to the direction

체를 이식한 것에 대한 설명에서 묘사된 어떤 진행사항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또한 **저녁별** 같은, 다른 **우주 조력자**들과 협력한다.

네바돈의 천사장 단체는 이 계층에서 처음 태어난 자의 지휘를 받으며, 아주 최근에는 천사장들의 부서(部署) 본부가 **유란시아**에 유지돼 왔다. 유별난 이 사실 때문에, **네바돈** 바깥에서 오는 연구 방문자들의 관심을 곧 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찍이 목격한 우주내부 처리사항 중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많은 상승 활동을 지역 체계 **사타니아**의 수도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방문자들은 발견한다. 그들은 더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유란시아**라고 불리는 소규모이고 외견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어떤 천사장 활동이 지휘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즉시 그들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의 초라한 구체에, 흥미를 북돋우게 된다.

낙원 상승 기획에 관련된 어떤 천사장 활동을 경영하고 지휘하는, 지방우주의 부서 본부가 된 행성이, 바로 초라하고 혼돈에 빠진 너희의 행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너희가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볼 때, 다른 상승 활동이 **미가엘**의 증여 세계에 장차 집중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견되며,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에, 중대하고 엄숙한 의미를 더해준다.

일반적으로, 천사장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아보날** 계층의 근무와 사역에 배정되지만, 다양한 돌보는 영이 활동하는 모든 국면에서 광범한 예비 훈련을 거쳐야 그렇게 된다. 인간거주 세계에 증여된 **낙원 아들**마다 100명의 단체가 동행하는데, 그런 증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에게 배정된다. **집정관 아들**이 행성의 임시 통치자가 돼야 한다면, 이 천사장들이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천상(天上)의 생명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로서 행동할 것이다.

어떤 행성 사명에서도, 사법적 조치나 집정관 사명 또는 증여 육신화를 포함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두 명의 선임 천사장이 **낙원 아보날**의 개인 조력자로서 배정된다. 이 **낙원 아들**이 어떤 영역의 심판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를 받을 때(소위 부활할 때), 잠자고 있는 인격체들의 스랍 수호자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한 섭리시대의 종결에 대한 출석점호를, 수행하는 한 천사장이 공표한다. 그가 부활의 천사장인데, 때로는 “**미가엘**의 천사장”이라고 언급된다.

천사장의 세계. **살빙톤**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archangels do sometimes function by his authority. They also collaborate with others of the Universe Aids, such as the Evening Stars, as is illustrated by certain transactions depicted in the narrative of life transplantation on your world.

37:3.3 (408.6) The archangel corps of Nebadon is directed by the first-born of this order, and in more recent times a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e archangels has been maintained on Urantia. It is this unusual fact that soon arrests the attention of extra-Nebadon student visitors. Among their early observations of intrauniverse transactions is the discovery that many ascendant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re directed from the capital of a local system, Satania. On further examination they discover that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are directed from a small and apparently insignificant inhabited world called Urantia. And then ensues the revelation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and their immediately quickened interest in you and your lowly sphere.

37:3.4 (409.1) Do you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your lowly and confused planet has become a divisional headquarters for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nd direction of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having to do with the Paradise ascension scheme? This undoubtedly presages the future concentration of other ascendant activities on the bestowal world of Michael and lends a tremendous and solemn import to the Master's personal promise, “I will come again.”

37:3.5 (409.2) In general, the archangel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and ministry of the Avonal order of sonship, but not until they have passed through extensive preliminary training in all phases of the work of the various ministering spirits. A corps of one hundred accompanies every Paradise bestowal Son to an inhabited world, being temporarily assigned to him for the duration of such a bestowal. If the Magisterial Son should become temporary ruler of the planet, these archangels would act as the directing heads of all celestial life on that sphere.

37:3.6 (409.3) Two senior archangels are always assigned as the personal aids of a Paradise Avonal on all planetary missions, whether involving judicial actions, magisterial missions, or bestowal incarnations. When this Paradise Son has finished the judgment of a realm and the dead are called to record (the so-called resurrection),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seraphic guardians of the slumbering personalities respond to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 roll call of a dispensation termination is promulgated by an attendant archangel. This is the archangel of the resurrec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archangel of Michael.”

37:3.7 (409.4) *The Worlds of the Archangels.* The

들 중에서 일곱째 집단은, 관련된 그 위성들과 함께 천사장들에게 배정된다. 1_번 구체와 그 여섯 종속 위성은, 인격체 기록 보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거대한 기록원 단체는, 필사자가 태어난 후부터 우주 생애를 거쳐서, 각 개인이 연방우주 체제를 향해 **살빙톤**을 떠나든지, 아니면 **태고 항존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된 실존으로부터 지워질” 때까지, 그런 시간세계에서 온 필사자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로 분주하게 지낸다.

필사자가 죽은 후부터 다시 인격화되기까지,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인격체 기록과 신분 보증서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이, 바로 이 세계들에서 이뤄진다.

4. 지고 보좌관

지고{至高} 보좌관들은 지방우주 바깥에서 지원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존재들의 집단인데, 그들은 그 지방 창조계에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또는 지방 창조계 참관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언제나 수백만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우주 검열관**, **영감된 삼위일체 영**,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제3스라빔, 그리고 다른 친절한 사역자들 같은, **낙원**에서 지원된 존재들의 사역과 보조로 도움을 받는데, 그들은 **네바돈** 전체를 **오르본톤**의 관념 및 **낙원**의 이상{理想}과 더 충분히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우리 본토 인격체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문다.

이 존재 가운데 누군가 **네바돈**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할권 밖에 있지만, 배정되어 활동할 때,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 인격체들은 우리 영역에서 그들의 사명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일하고, 더 높은 우주들의 대표자로서 계속 작용함에도, 그들이 머무는 지방우주의 규칙으로부터 완전하게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일반 본부는 **살빙톤**에서 **함동 항존자**의 구역에 자리잡으며,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가 보낸 이 대사{大使}의 전면감독을 받으면서 **네바돈**에서 일한다. 배속되지 않은 집단에서 근무할 때, 높은 영역에서 온 이 인격체들은 대개 스스로 결정하지만, 요청에 따라서 근무할 때에는 배정된 역할의 범주를 감독하는 지휘자들의 전적인 관할권 아래로 자진해서 들어오곤 한다.

지고 보좌관들은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성좌

seventh group of the encircling Salvington worlds, with their associated satellites, is assigned to the archangels. Sphere number one and all of its six tributary satellites are occupied by the personality record keepers. This enormous corps of recorders busy themselves with keeping straight the record of each mortal of time from the moment of birth up through the universe career until such an individual either leaves Salvington for the superuniverse regime or is “blotted out of recorded existence” by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37:3.8 (409.5) It is on these worlds that personality records and identification sureties are classified, filed, and preserved during that time which intervenes between mortal death and the hour of repersonalization, the resurrection from death.

4. MOST HIGH ASSISTANTS

37:4.1 (409.6) The Most High Assistants are a group of volunteering beings, of origin outside the local universe, who are temporarily assigned as central and superuniverse representatives to, or observers of, the local creations. Their number varies constantly but is always far up in the millions.

37:4.2 (409.7) From time to time we thus benefit from the ministry and assistance of such Paradise-origin beings as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Universal Censors, Inspired Trinity Spirits, Trinitized Sons, Solitary Messengers, supernaphim, seconaphim, tertiaphim, and other gracious ministers, who sojourn with us for the purpose of helping our native personalities in the effort to bring all Nebadon into fuller harmony with the ideas of Orvonton and the ideals of Paradise.

37:4.3 (410.1) Any of these beings may be voluntarily serving in Nebadon and hence be technically outside our jurisdiction, but when functioning by assignment, such personalities of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are not wholly exempt from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sojourn, though they continue to function as representatives of the higher universes and to work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hich constitute their mission in our realm. Their general headquarters is situated in the Salvington sector of the Union of Days, and they operate in Nebadon subject to the oversupervision of this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When serving in unattached groups, these personalities from the higher realms are usually self-directing, but when serving on request, they often voluntarily place themselves who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ervising directors of the realms of assigned function.

37:4.4 (410.2) Most High Assistants serve in local

에서 능력껏 근무하지만, 체계나 행성 정부에는 직접 배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들은 지방우주에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 있으며, **네바돈** 활동의 어느 국면에든지--곧 경영, 행정, 교육, 또는 어느 기타 분야든지--배정될 수 있다.

이 단체 대부분은 **네바돈 낙원** 인격체들--곧 **합동 향존자, 창조주 아들, 충실 향존자들, 집정관 아들들**, 및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돕는 일에 편입된다. 지방 창조계의 직무를 처리할 때, 때로는 그 지방우주의 거의 모든 고유 인격체가 알지 못하도록, 어떤 자세한 내용을 임시로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게 된다. 어떤 진보 계획과 복잡한 규정 역시, **지교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 성숙되고 멀리 내다보는 단체가 더 잘 파악하고 더 완전하게 이해하며, 그들은 그런 상황 및 기타 여러 상황에서 우우 통치자와 경영자들에게 매우 쓸모 있다.

5. 고위 책임자

고위{高位} **책임자**들은 **영과** 융합된 상승한 필사자이며;**조울사**와 융합되지 않는다. 너희는 **조울사**와 융합할 필사 후보자가 우주에서_상승하는 생애, 즉 **그리스도 미가엘**이 증여된 이후로 모든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가능하게 된 고상한 운명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와 비슷한 세계에서, 증여_이전{以前} 시대에 모든 필사자의 유일한 운명이 아니며, **사교 조울사**가 거주민에게 결코 영구적으로 내주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세계가 있다. 그런 필사자는 **낙원**에서 증여한 **신비 관찰자**와 결코 영구히 합동하지 않으나;그럼에도 **조울사**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내주하여, 육체 속에서 생애가 지속되는 동안 안내자와 원형{原型}으로서 이바지한다. 그들은 이런 일시적 체류 기간에, 융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 안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멸하는 혼의 진화를 촉진시키지만, 그 필사자가 달려가기를 끝내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연합했던 그 피조물을 영원히 떠난다.

이 계층에서 생존하는 혼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개별화된 영 단편과 영원히 융합됨으로써 불멸성을 달성한다. 적어도 **네바돈**에서, 그들은 다수의 집단이 아니다. 맨션 세계에 가면, 너희는 **영과** 융합된 이 필사자들을 만나고 사귀겠지만, **낙원** 경로에서 그들은 **살빙톤**에 이를 때까지만 너희와 동행하고, 거기서 멈춘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후에 더 높은 우주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방우주 근무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며;한 부류로서는 **낙원** 달성을 이루게 돼있지 않다.

조울사와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완결성취자가 될 수 없지만, 결국 지방우주의 **완**

universe and in constellation capacities but are not directly attached to the system or planetary governments. They may, however, function anywhere in the local universe and may be assigned to any phase of Nebadon activity — administrative, executive, educational, and others.

37:4.5 (410.3) Most of this corps is enlisted in assisting the Nebadon Paradise personalities — the Union of Days, the Creator Son, the Faithfuls of Days, the Magisterial Son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Now and then in the transaction of the affairs of a local creation it becomes wise to withhold certain details, temporarily, from the knowledge of practically all of the native personalities of that local universe. Certain advanced plans and complex rulings are also better grasped and more fully understood by the more mature and farseeing corps of Most High Assistants, and it is in such situations, and many others, that they are so highly serviceable to the universe rulers and administrators.

5. HIGH COMMISSIONERS

37:5.1 (410.4) The High Commissioners are Spirit-fused ascendant mortals; they are not Adjuster fused. You quite well understand about the universe-ascension career of a mortal candidate for Adjuster fusion, that being the high destiny in prospect for all Urantia mortals since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But this is not the exclusive destiny of all mortals in the prebestowal ages of worlds like yours, and there is another type of world whose inhabitants are never permanently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Such mortals are never permanently joined in union with a Mystery Monitor of Paradise bestowal; nevertheless, the Adjusters do transiently indwell them, serving as guides and patterns for the duration of the life in the flesh. During this temporary sojourn they foster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just as in those beings with whom they hope to fuse, but when the mortal race is run, they take eternal leave of the creatures of temporary association.

37:5.2 (410.5) Surviving souls of this order attain immortality by eternal fusion with an individualized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not a numerous group, at least not in Nebadon.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meet and fraternize with these Spirit-fused mortals as they ascend the Paradise path with you as far as Salvington, where they stop. Some of them may subsequently ascend to higher universe levels, but the majority will forever remain in the service of the local universe; as a class they are not destined to attain Paradise.

37:5.3 (411.1) Not being Adjuster fused, they never become finaliters, but they do eventually become enrolled in the local universe Corps of Perfection.

전성 단체에 소속된다. 그들은 “너희도 완전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했다.

영과 융합된 상승자들은, **네바돈 완전성 단체**를 달성한 후에 **우주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열려있는 계속적인 체험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의 관점을, 지방우주에 있는 천상의 권세자들에게 해석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여러 위원회의 후보자가 된다.

고위 책임자들은 인종 책임자로서 행성 봉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런 수용력으로 다양한 인간 종족의 관점을 해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필사자 인종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며, 다른 민족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이 자비와 공의 및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언제나 노력한다. 인종 책임자들은 끝없이 연속되는 행성 위기에 활동하며, 투쟁하는 필사자 집단 전체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자로서 봉사한다.

이 인종 책임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오랜 경험을 쌓은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역할로 승진하는데, 결국 지방우주의 **고위 책임자** 신분을 거기서 달성한다. 최근에 등록된 이런 **고위 책임자**의 숫자는 15억보다 약간 많다. 이 존재들은 완결성취자는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쌓은 상승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출생한 영역에 크게 쓸모가 있다.

모든 사법 재판소에서, 가장 낮은 데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우리는 늘 이 책임자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사법(司法) 절차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 법정에서 친구로서 활동하는데, 판결에 관계된 자들의 전례(前例)와 환경 그리고 타고난 본성에 관하여, 주관하는 사법관들에게 조언한다.

고위 책임자들은 공간의 다양한 사자 무리에 게, 그리고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들에게 항상 배속돼 있다. 다양한 우주 집회 과정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며, 필사자에 정통한 바로 이 책임자들은, 공간 세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에 항상 배속돼 있다.

고려되고 있는 정책이나 과정이, 시간세계에서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공정함과 응보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책임자들이 그들의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가까이 있으며; 자신을 위해 발언할 수 없는 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항상 출석하고 있다.

영과 융합된 필사자의 세계. 살빙톤 회로에서 여덟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와 거기에 종속

They have in spirit obeyed the Father's command, "Be you perfect."

37:5.4 (411.2) After attaining the Nebadon Corps of Perfection, Spirit-fused ascenders may accept assignment as Universe Aids, this being one of the avenues of continuing experiential growth which is open to them. Thus do they become candidates for commissions to the high service of interpreting the viewpoints of the evolving creatures of the material worlds to the celestial authorities of the local universe.

37:5.5 (411.3) The High Commissioners begin their service on the planets as race commissioners. In this capacity they interpret the viewpoints and portray the needs of the various human races. They are supremely devoted to the welfare of the mortal races whose spokesmen they are, ever seeking to obtain for them mercy, justice, and fair treatment in all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s. Race commissioners function in an endless series of planetary crises and serve as the articulate expression of whole groups of struggling mortals.

37:5.6 (411.4) After long experience in problem solving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race commissioners are advanced to the higher levels of function, eventually attaining the status of High Commissioners of and in the local universe. The last registration recorded slightly over one and one-half billion of these High Commissioners in Nebadon. These beings are not finalizers, but they are ascendant beings of long experience and of great service to their native realm.

37:5.7 (411.5) We invariably find these commissioners in all the tribunals of justice,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Not that the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justice, but they do act as friends of the court, advising the presiding magistrates respecting the antecedents, environment, and inherent nature of those concerned in the adjudication.

37:5.8 (411.6) High Commissioners are attached to the various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always to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hey are encountered on the programs of various universe assemblies, and these same mortal-wise commissioners are always attached to the missions of the Sons of God to the worlds of space.

37:5.9 (411.7) Whenever fairness and justice require an understanding of how a contemplated policy or procedure would affect the evolutionary races of time, these commissioners are at hand to present their recommendations; they are always present to speak for those who cannot be present to speak for themselves.

37:5.10 (411.8) *The Worlds of the Spirit-fused Mortals.* The eighth group of seven primary worlds

된 위성들은, **영과** 융합된 **네바돈** 필사자들이 독점으로 소유한다. **조울사**와 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영과** 융합된 거주민이 초청한 손님으로서 여러 차례 즐겁고 유익한 체류 기간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계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우버사와 **낙원**을 달성한 소수를 제외하고, 이 세계들은 **영과** 융합된 생존자들의 영구 거주지다. 필사자가 상승하는 것에 그렇게 고의로 한계를 부과하는 것은, 진화된 영구 주민을 보유하도록 보증함으로써 지방우주에 순익(純益)을 가져올 것인데, 그 주민의 증대되는 체험이, 지방우주 경영의 미래 안정성과 다양성을 계속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존재들은 **낙원**을 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네바돈**의 문제를 정복하면서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며, 이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상승자들이 달성한 어떤 것이든지 철저히 능가한다. 그리고 생존하는 이 혼들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독특한 조합체로서 계속 존재하는데, 넓게 갈라진 이 두 수준의 관점을 점점 더 일치시킬 수 있고, 계속 강화되는 지혜로 그런 이중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6. 천상의 감독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멜기세덱** 교육 단체가 **네바돈** 교육 체계를 공동으로 경영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계획된 업무 대부분은 **천상(天上)의 감독자**들이 수행한다. 이 존재들은 모집된 단체인데, 상승하는 필사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개인을 포함한다. **네바돈**에는 그들이 300만 명 이상 존재하며, 그들은 모두, 전체 영역에 교육 충고자로서 이바지할 만큼, 체험으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다. 이 감독자들은, **살빙톤**의 **멜기세덱** 세계에 있는 자신들의 본부로부터, 상승하는 피조물의 정신 훈련과 영(靈) 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안된 **네바돈** 학교 기법을 조사하는 자로서, 지방우주를 돌아다닌다.

이런 정신 훈련과 영 교육은,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로부터 체계 맨션 세계들 및 **예루셈**과 관련된 다른 진보 구체들을 거쳐서, **에덴시아**에 배속된 70개의 사회화(社會化)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빙톤**을 둘러싸고 있는 490개의 영 진보 구체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우주 본부 자체에는 수많은 **멜기세덱** 학교, **우주 아들**들의 학부, 스랍 대학, 그리고 **교사 아들**들과 **함동 항존자**의 학교들이 있다. 승진하는 근무와 개선되는 기능을 위해 우주의 다양한 인격체가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준비가 마련된다. 전체 우주가 하나의 방대한 학교다.

and tributary satellite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Spirit-fused mortals of Nebadon. Ascending Adjuster-fused mortals are not concerned with these worlds except to enjoy many pleasant and profitable sojourns as the invited guests of the Spirit-fused residents.

37:5.11 (411.9) Except for those few who attain Uversa and Paradise, these worlds are the permanent residence of the Spirit-fused survivors. Such designed limitation of mortal ascent reacts to the good of the local universes by insuring the retention of a permanent evolved population whose augmenting experience will continue to enhance the future stabi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beings may not attain Paradise, but they achieve an experiential wisdom in the mastery of Nebadon problems that utterly surpasses anything attained by the transient ascenders. And these surviving souls continue as unique combinations of the human and the divine, being increasingly able to unite the viewpoints of these two widely separate levels and to present such a dual viewpoint with ever-heightening wisdom.

6. CELESTIAL OVERSEERS

37:6.1 (412.1) The Nebadon educational system is jointly administer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the Melchizedek teaching corps, but much of the work designed to effect its maintenance and upbuilding is carried on by the Celestial Overseers. These beings are a recruited corps embracing all types of individuals connected with the scheme of educating and training the ascending mortals. There are upward of three million of them in Nebadon, and they are all volunteers who have qualified by experience to serve as educational advisers to the entire realm. From their headquarters on the Salvington worlds of the Melchizedeks, these overseers range the local universe as inspectors of the Nebadon school technique designed to effect the mind training and the spirit education of the ascending creatures.

37:6.2 (412.2) This training of mind and education of spirit is carried on from the worlds of human origin up through the system mansion worlds and the other spheres of progress associated with Jerusem, on the seventy socializing realms attached to Edentia, and on the four hundred and ninety spheres of spirit progress encircling Salvington.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itself are numerous Melchizedek schools, the colleges of the Universe Sons, the seraphic universities, and the schools of the Teacher Sons and the Union of Days. Every possible provision is made to qualify the various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다수의 상급{上級} 학교에서 채택된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인간 개념을 넘어서지만, 전체 교육 체계의 요지는 바로:성품은 깨우친 체험으로 획득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깨우침을 제공하며;우주 정거장과 상승자의 신분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성품이 강화된다.

근본적으로, **네바돈** 교육 체계는 한 과제에 배정되도록 너를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이상적이고 신성한 방법에 관해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제공한다. 수행될 분명한 과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그와 동시에 너에게 부과된 것을 실행할 최상의 방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선생들이 너에게 제공된다. 신성한 교육 계획은, 작업과 지침이 긴밀하게 연합되도록 마련된다. 우리는, 우리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친다.

이런 모든 훈련과 체험의 목적은, 연방우주의 더 높고 더 영적인 교육 구체들로 받아들이지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영역에서 진보는 개별로 이뤄지지만,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옮겨지는 것은 대개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

영원성에 이르는 진보는 오로지 영적 발전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적 습득 역시 우주 교육의 일부분이다. 정신의 체험은 영적 시야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진다. 정신과 영에게, 훈련과 승진을 위한 비슷한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너는 정신과 영의 이런 모든 뛰어난 훈련을 받는 동안, 필사 육신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돼 있다. 너는 자신의 상반된 영적 본성과 물질적 본성이 대립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관정하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물질적인 것들 쪽으로 끌리는 원시적 동물 성향들이 제거된 지 오랜 후에, 영화롭게 된 정신의 통합된 충동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마침내 갖추게 된다.

네바돈 우주를 떠나기 전에, **유란시아** 필사자 대부분은, **네바돈의 천상의 감독자** 단체 구성원으로서, 길거나 짧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7. 맨션 세계 교사

맨션 세계 교사들은 모집되고 영화롭게 된 체루빔이다. **네바돈**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교관{敎官}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멜기세덱**들이 임명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생애의 교육 체계 대부분에서 활약하며, 그들의 숫자는 필사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for advancing service and improving function. The entire universe is one vast school.

37:6.3 (412.3) The methods employed in many of the higher schools are beyond the human concept of the art of teaching truth, but this is the keynote of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character acquired by enlightened experience. The teachers provide the enlightenment; the universe station and the ascender's status afford the opportunity for experience; the wise utilization of these two augments character.

37:6.4 (412.4) Fundamentally, the Nebadon educational system provides for your assignment to a task and then affords you opportunity to receive instruction as to the ideal and divine method of best performing that task. You are given a definite task to perform, and at the same time you are provided with teachers who are qualified to instruct you in the best method of executing your assignment. The divine plan of education provides for the intimate association of work and instruction. We teach you how best to execute the things we command you to do.

37:6.5 (412.5) The purpose of all this training and experience is to prepare you for admission to the higher and more spiritual training spheres of the superuniverse. Progress within a given realm is individual, but transition from one phase to another is usually by classes.

37:6.6 (412.6) The progression of eternity does not consist solely in spiritual development. Intellectual acquisition is also a part of universal education. The experience of the mind is broadened equally with the expansion of the spiritual horizon. Mind and spirit are afforded like opportunities for training and advancement. But in all this superb training of mind and spirit you are forever free from the handicaps of mortal flesh. No longer must you constantly referee the conflicting contentions of your divergent spiritual and material natures. At last you are qualified to enjoy the unified urge of a glorified mind long since divested of primitive animalistic trends towards things material.

37:6.7 (413.1) Before leaving the universe of Nebadon, most Urantia mortals will be afforded opportunity to serve for a longer or shorter time as members of the Nebadon corps of Celestial Overseers.

7. MANSION WORLD TEACHERS

37:7.1 (413.2) The Mansion World Teachers are recruited and glorified cherubim. Like most other instructors in Nebadon they are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They function in most of the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morontia life, and their number is quite beyond the comprehension of mortal mind.

체루빔과 사노빔이 달성하는 수준으로서, **맨션 세계 교사**들을 다음 문서에서 더 많이 다룰 것이며, 한편 모론티아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그들에 대해, 그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에서 더 광범하게 논의할 것이다.

8. 배정된 고등 영 계층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계보에 해당하는, 높은 기원을 갖는 영 존재들이 지방우주에 영구히 배정돼 있다. **무한한 영**의 계보에 해당하는 고등 영 계층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배정돼 있다:

단독 사자는, 지방우주 행정부에 기능적으로 배속됐을 때, 시간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에,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봉사를 제공한다. 그들이 그렇게 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방우주에서 그들에 대해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독특한 이 존재들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기꺼이 돕고 있다.

안도본티아는 우리 지방우주에 위치한 3차 **우주 회로 감독관**의 이름이다. 그는 오직 영 회로와 모론티아 회로에만 관계하고, 동력 지휘자들의 관할 아래 있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루시퍼** 반역을 시험하는 시절 동안 **캘리개스차**의 행성 배반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가 **유란시아**를 격리시켰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이 감독하는 우주 회로로 너희가 언젠가 복귀될 것을 예상하며 기쁨을 표현한다.

네바돈 인구조사 지휘자인 **살사티아**는 **살빙톤**의 **가브리엘** 구역 내에 본부를 둔다. 그는 의지의 탄생과 죽음을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정확한 숫자를 즉각 등록한다. 그는 천사장들의 기록 세계들에 거주하는 인격체 기록원들과 가깝게 연합해서 일한다.

부(副) 검사관 한 명이 **살빙톤**에 거주한다. 그는 **오르본톤**의 **최상급 행정관**의 개인 대행자다. 그의 동역자인, 지역 체계들에 있는 **배정된 파수꾼**들 역시, **오르본톤**의 **최상급 행정관**의 대행자다.

우주 화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이동(移動)하는 법정인데, 진화하는 세계로부터 지방우주의 각 지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활동한다. 이 심판관들은 **우버사**에 등록돼 있으며, **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돼 있지 않다.

37:7.2 (413.3) As an attainment level of cherubim and sanobim, the Mansion World Teachers will receive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next paper, while as teachers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the morontia life, they will be more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paper of that name.

8. HIGHER SPIRIT ORDERS OF ASSIGNMENT

37:8.1 (413.4) Besides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certain of the higher-origin spirit beings of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are of permanent assignment to the local universe. Of the higher spirit orders of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 following are so assigned:

37:8.2 (413.5) The *Solitary Messengers*, when functionally attached to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render invaluable service to us in our efforts to overcome the handicaps of time and space. When they are not thus assigned, we of the local universes have absolutely no authority over them, but even then these unique beings are always willing to help us with the solution of our problems and with the execution of our mandates.

37:8.3 (413.6) Andovontia is the name of the tertiary *Universe Circuit Supervisor* stationed in our local universe. He is concerned only with spirit and morontia circuits, not with tho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ower directors. It was he who isolated Urantia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betrayal of the planet during the testing seasons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ending greetings to the mortals of Urantia, he expresses pleasure in the anticipation of your sometime restoration to the universe circuits of his supervision.

37:8.4 (413.7) The *Nebadon Census Director*, Salsatia, maintains headquarters within the Gabriel sector of Salvington. He is automatically cognizant of the birth and death of will and currently registers the exact number of will creatures functioning in the local universe. He works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personality recorders domiciled on the record worlds of the archangels.

37:8.5 (413.8) An *Associate Inspector* is resident on Salvington. He i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His associates, the *Assigned Sentinels* in the local systems, are also representatives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37:8.6 (414.1) The *Universal Conciliators* are the traveling court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function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up through every sect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on beyond. These referees are registered on Uversa;

만, 내가 추산하기로는 우리 지방우주에 약 1억 개의 화해 위원회가 있다.

법해석 고문은 그 영역의 법 정신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숫자는 약 5억 명이다. 이 존재들은, 모든 공간에 있는, 살아있고 순회하는 체험적 법률 도서관이다.

천상의 기록원은 상승한 스라빔인데, 우리는 **네바돈**에 75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선임 기록원 또는 감독하는 기록원이다. 이 계층 중에서 훈련을 받는, 진보하는 학생은 거의 40억 명에 이른다.

700억 명의 **모론티아 동무**가 **네바돈**에서 베푸는 사역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거치는 과도기 행성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설명된다.

각 우주마다 그 자체의 토착 천사 단체를 소유하며;그럼에도 지방 창조계 바깥에서 지원된 고등 영들의 협조가 매우 유익한 경우가 있다. 최고 스라빔은 어떤 드물고 독특한 봉사를 수행하며;**유란시아** 스라빔의 현직 우두머리는, **낙원**의 제1 최고스라빔이다. 반사하는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서나 발견되며, 매우 많은 제3스라빔이 **지고{至高} 보좌관**으로서 임시로 근무한다.

the exact number operating in Nebadon is not of record, but I estimate that there are in the neighborhood of one hundred million conciliating commissions in our local universe.

37:8.7 (414.2) Of the *Technical Advisers*, the legal minds of the realm, we have our quota, about one-half billion. These beings are the living and circulating experiential law libraries of all space.

37:8.8 (414.3) Of the *Celestial Recorders*, the ascendant seraphim, we have in Nebadon seventy-five. These are the senior or supervising recorders. The advancing students of this order in training number almost four billion.

37:8.9 (414.4) The ministry of the seventy billion *Morontia Companions* in Nebadon is described in thos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transition planets of the pilgrims of time.

37:8.10 (414.5) Each universe has its own native angelic corps; nevertheless, there are occasions on which it is very helpful to have the assistance of those higher spirits of origin outside the local creation. Supernaphim perform certain rare and unique services; the present chief of Urantia seraphim is a primary supernaphim of Paradise. The reflective seconaphim are encountered wherever the superuniverse personnel is functioning, and a great many tertiaphim are of temporary service as Most High Assistants.

9. 지방우주의 영구 시민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와 마찬가지로, 지방우주 역시 영구{永久} 시민권을 갖는 자체 계층을 소유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창조된 유형을 포함한다:

1. **수사티아**.
2. **유니비타시아**.
3. **물질 아들**.
4. **중도{中道} 피조물**.

지방 창조계의 이 원주민은, **영과** 융합된 상승자들 및 (다르게 분류되는) 스피롱가와 함께, 비교적 영구적인 시민신분을 구성한다. 이 계층의 존재들은 대체로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체험하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의 체험은 지원된 수준에서 우주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반면에 이것은 **아담의 아들**들과 중도 피조물에게는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이 계층들에게는 비교적 적용되는 편이다.

수사티아 기묘한 이 존재들은, 이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서 영구 시민으로서 거주하고 활

9.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37:9.1 (414.6) As with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the local universe has its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These include the following created types:

- 37:9.2 (414.7) 1. Susatia.
- 37:9.3 (414.8) 2. Univatia.
- 37:9.4 (414.9) 3. Material Sons.
- 37:9.5 (414.10) 4. Midway Creatures.

37:9.6 (414.11) These natives of the local creation, together with the Spirit-fused ascenders and the spironga (who are otherwise classified), constitute a relatively permanent citizenship. These orders of beings are by and large neither ascending nor descending. They are all experiential creatures, but their enlarging experience continues to be available to the universe on their level of origin. While this is not wholly true of the Adamic Sons and midway creatures, it is relatively true of these orders.

37:9.7 (414.12) *The Susatia*. These marvelous beings reside and function as permanent citizens on

동한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훌륭한 자손이며, 지방우주의 상승하는 시민, 즉 **네바돈의 완전성 단체**의 **영과** 융합된 필사자와 가깝게 연합돼 있다.

유니비타시아. 건축양식 구체인 100개 성좌 본부의 집단은, 각각 유니비타시아라고 알려진, 거주하는 계층의 존재들이 베푸는 보살핌을 계속 받는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낳은 이 자녀들은, 성좌 본부 세계의 영구 주민 가운데 일원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물질 아들**들의 약간물질 상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영적 수준에 있는 **영과** 융합된 필사자들 및 **살빙톤**의 수사티아 사이에, 대략 중간 생명 수준에서 실존하는, 번식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유니비타시아는 모론시아 존재가 아니다. 중앙 창조물을 거쳐서 지나가는 순례자 영들에게 **하보나** 주민이 기여하는 것을, 상승하는 필사자가 성좌 구체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에 유니비타시아들이 그 필사자에게 해준다.

하나님의 물질 아들.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인 **우주 어머니 영** 사이의 창조적 접촉이 그 주기(週期)를 마쳤을 때, 즉 혼합된 본성의 자손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을 때,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마지막 존재 개념을 이중 형태로 인격화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자신이 원래 이중으로 기원했음을 확증한다. 그 자체로, 그는 우주 아들신분을 갖는 물질 계층의 아름답고 뛰어난 **아들**과 **딸**들을 창조한다. 이것이 **네바돈**에 속한 각 지역 체계의 원본 **아담**과 **이브**의 기원이다. 그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번식 가능한 계층인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손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비교적 영구적인 시민으로서 활동하지만, 더러는 **행성 아담**으로서 임명된다.

행성 사명에 임할 때,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세계의 **아담** 인종, 즉 결국 그 구체의 필사 거주자들과 혼합되도록 계획돼 있는 한 인종을 확립하도록 임명된다. **행성 아담**들은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대개 그들을 상승하는 존재로 분류한다.

중도 피조물.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초기 시대에, 초인적임에도 물질화된 어떤 존재들이 배정되지만, 그들은 대개 **행성 아담**들이 도착할 때 물러난다. 진화하는 인종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들의 처리사항과 **물질 아들**들의 노력은, 분류되기 어렵고 숫자가 제한된 피조물이 출현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 아들**과 진화 피조물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중도(中道)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중도자들은 진화 세계의 영구 시민이다. **행성 왕자**가 도착하는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this local universe. They are the brilliant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and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scenda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the Spirit-fused mortals of the Nebadon Corps of Perfection.

37:9.8 (414.13) *The Univitatia*. Each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headquarters clusters of architectural spheres enjoys the continuous ministry of a residential order of beings known as the univitatia. These childre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constitute the permanent population of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They are nonreproducing beings existing on a plane of life about halfway between the semimaterial status of the Material Sons domicil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and the more definitely spiritual plane of the Spirit-fused mortals and the susatia of Salvington; but the univitatia are not morontia beings. They accomplish for ascending mortals during the traversal of the constellation spheres what the Havona natives contribute to the pilgrim spirits passing through the central creation.

37:9.9 (415.1) *The Material Sons of God*. When a creative liaison between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the Universe Mother Spirit, has completed its cycle, when no more offspring of the combined nature are forthcoming, then does the Creator Son personalize in dual form his last concept of being, thus finally confirming his own and original dual origin. In and of himself he then creates the beautiful and superb Sons and Daughters of the material order of universe sonship. This is the origin of the original Adam and Eve of each local system of Nebadon. They are a reproducing order of sonship, being created male and female. Their progeny function as the relatively permanent citizens of a system capital, though some are commissioned as Planetary Adams.

37:9.10 (415.2) On a planetary mission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commissioned to found the Adamic race of that world, a race designed eventually to amalgamate with the mortal inhabitants of that sphere. Planetary Adams are both descending and ascending Sons, but we ordinarily class them as ascending.

37:9.11 (415.3) *The Midway Creatures*. In the early days of most inhabited worlds, certain superhuman but materialized beings are of assignment, but they usually retire upon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Adams. The transactions of such beings and the efforts of the Material Sons to improve the evolutionary races often result in the appearance of a limited number of creatures who are difficult to classify. These unique beings are often midway between the Material Sons and the evolutionary creatures; hence their designation,

초기 시대부터, 그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먼 훗날 시대까지, 그들은 그 구체에 계속 남아있는 유일한 지성 존재 집단이다. **유란시아**에서 중도 사역자들은 정말로 실제 행성 관리인이며;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유란시아** 시민이다. 필사자들은 진화 세계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주민인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 모두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며; 너희는 너희 본고장 행성에 너무나 짧은 기간 머문다. 너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며, 진화로 진보하는 다른 세계들로 옮겨진다. 행성에서 천상의 사역자로서 봉사하는 초인적 존재들조차 일시적으로 임명받으며; 그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일정한 영역에 오래 배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중도 피조물은, 천상의 보살핌은 항상 변하고 필사자 거주민은 계속 바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성을 계속 경영한다. 끊임없는 이런 변화와 변천 전체를 통해서, 중도 피조물은 자신의 업무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그 행성에 남아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모든 경영 조직 분야에는, 다소 영구적인 주민, 즉 시민권 신분의 거주민이 소속돼 있다. **유란시아**에 중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체계 수도인 **에루셈**에는 **물질 아들**과 **딸**들이 있으며; 너희의 성좌 본부인 **에덴시아**에는 유니비타시아가 있고, 한편 **살빙톤**의 시민은 두 가지인데, 창조된 수사타아 그리고 진화된 **영**과 융합된 필사자들이다.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의 경영 세계에는 영구 시민이 없다. 그러나 **우버사** 본부 구체들은 **어벤돈터**로 알려진 놀라운 존재 집단의 보살핌을 계속 받는데,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계시되지 않은 대행자들과 **오르본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일곱 **반사하는 영**이 창조한 존재다. **우버사**에 거주하는 이 시민들은 현재,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로 구성된 **우버사** 단체의 직접 감독 아래서 일상적 직무를 경영하고 있다. 심지어 **하보나**에도 원주민 존재들이 있으며, **빛과 생명**의 중앙 **섬**은 다양한 집단의 **낙원** 시민의 고향이다.

10. 다른 지방우주 집단

이어지는 문서들에서 고려될 스랍 및 필사자 계층 외에, **네바돈** 우주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완성해 가는 일에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가 있는데, **네바돈**은 인간거주 세계가 현재 3백만 개 이상 있고, 천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네바돈** 생명 유형은 너무 많아서 이 문서에 목록을 게재할 수도 없지만, 647,591개의 지방

midway creatures. In a comparative sense these midwayers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From the early days of the arrival of a Planetary Prince to the far-distant time of the settling of the planet in light and life, they are the only group of intelligent beings to remain continuously on the sphere. On Urantia the midway ministers are in reality the actual custodians of the planet; they are, practically speaking, the citizens of Urantia. Mortals are indeed the physical and material inhabitants of an evolutionary world, but you are all so short-lived; you tarry on your nativity planet such a short time. You are born, live, die, and pass on to other world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Even the superhuman beings who serve on the planets as celestial ministers are of transient assignment; few of them are long attached to a given sphere. The midway creatures, however, provide continuity of planetary administration in the face of ever-changing celestial ministries and constantly shifting mortal inhabitants. Throughout all of this never-ceasing changing and shifting, the midway creatures remain on the planet uninterruptedly carrying on their work.

37:9.12 (415.4) In like manner, all di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have their more or less permanent populations, inhabitants of citizenship status. As Urantia has its midwayers, Jerusem, your system capital, ha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Edentia,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has the univitatia, while the citizens of Salvington are twofold, the created susatia and the evolved Spirit-fused mortals. The administrative worlds of the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s do not have permanent citizens. But the Uversa headquarters spheres are continuously fostered by an amazing group of beings known as the *abandoners*, the creation of the unrevealed agent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resident on the capital of Orvonton. These residential citizens on Uversa are at present administering the routine affairs of their world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Uversa corps of the Son-fused mortals. Even Havona has its native beings, and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is the home of the various groups of Paradise Citizens.

10. OTHER LOCAL UNIVERSE GROUPS

37:10.1 (416.1) Besides the seraphic and mortal orders, who will be considered in later papers,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beings concerned in the maintenance and perfecting of such a gigantic organization as the universe of Nebadon, which even now has more than three million inhabited worlds, with ten million in prospect. The various Nebadon types of life are much too numerous to

우주 건축양식 구체에서 광범하게 활동하는 두 가지 진귀한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롱가는 빛나는 새벽별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영 후손이다. 그들은 인격 소멸에서 제외되지만, 진화하거나 상승하는 존재는 아니다. 또한 그들은 진화 상승 체제에 기능적으로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영 도우미인데, **네바돈**의 일상적인 영 과제를 실행한다.

스포르나기아. 지방우주의 건축양식 본부 세계들은 실재하는 세계다--곧 물리적 창조물이다.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스포르나기아라고 불리는 물리적 피조물 집단의 협조를 받는다. 그들은 **예루셈**으로부터 **살빙톤**에 이르기까지, 이 본부 세계들의 물질 국면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전념한다. 스포르나기아는 영이 아니고 인격자도 아니며; 실존하는 동물 계층이지만,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완벽한 동물로 보인다고 동의할 것이다.

다양한 우대(優待) 거주민이 **살빙톤** 및 기타 장소에 거주한다. 특별히 우리는 성좌에 있는 천상의 기능공들의 사역에서 덕을 보고, 회고(回顧) 지휘자들의 활동에서 유익을 얻는데, 그들은 주로 지방체계 수도에서 활동한다.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을 포함해, 상승하는 필사자 단체가 우주 봉사에 항상 배속돼 있다. 이 상승자들은, **살빙톤**에 도착한 후에, 우주 직무 수행에서 거의 끝없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된다. 각 성취 수준에서 승진하는 이 필사자들은,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뒤로 돌이켜 손을 뻗는다. **살빙톤**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필사자들은, 도우미, 학생, 참관인, 및 선생으로서, 천상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모든 단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배정된다.

지방우주 경영과 관련된 다른 유형의 지성 생명체가 아직 많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창조된 이 계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히지 않도록 계획돼 있다. 생존하는 실존의 실체와 웅대함을 필사 정신이 파악하기에 알맞은 만큼, 이 우주의 생명체들과 경영은 여기에 충분히 설명됐다.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들에서 더 많은 체험이, 이 흥미롭고 매력 있는 존재들을 점점 더 드러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훈련 학교로서 이 창조물들을 경영하는,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 충만한 가지각색 인격체의 본성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윤곽만 제시할 뿐인데, 그 학교들에서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자신이 기원된 우주의 경계선으로부터 연방우주의 더 높은 교육 체제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보나**의 영_훈련 세계들로, 그리고 결국에는 **낙원**과 완결성취자의 고귀한 운명으로, 사랑을 받

be catalogued in this paper, but there are two unusual orders that function extensively on the 647,591 architectural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 that may be mentioned.

37:10.2 (416.2) The *Spironga* are the spirit offspring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and the Father Melchizedek. They are exempt from personality termination but are not evolutionary or ascending beings. Neither are they functionally concerned with the evolutionary ascension regime. They are the spirit helpers of the local universe, executing the routine spirit tasks of Nebadon.

37:10.3 (416.3) The *Spornagia*. The architectural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are real worlds — physical creations. There is much work connected with their physical upkeep, and herein we have the assistance of a group of physical creatures called spornagia. They are devoted to the care and culture of the material phases of these headquarters worlds, from Jerusem to Salvington. Spornagia are neither spirits nor persons; they are an animal order of existence, but if you could see them, you would agree that they seem to be perfect animals.

37:10.4 (416.4)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are domiciled on Salvington and elsewhere. We especially profit from the ministry of the celestial artisans on the constellations and benefit from the activities of the reversion directors, who operate chiefly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37:10.5 (416.5) Always there is attached to the universe service a corps of ascending mortals, including the glorified midway creatures. These ascenders, after attaining Salvington, are used in an almost endless variety of activities in the conduct of universe affairs. From each level of achievement these advancing mortals reach back and down to extend a helping hand to their fellows who follow them in the upward climb. Such mortals of temporary sojourn on Salvington are assigned on requisition to practically all corp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 helpers, students, observers, and teachers.

37:10.6 (416.6) There are still other types of intelligent life concern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but the plan of this narrative does not provide for the further revelation of these orders of creation. Enough of the life and administration of this universe is being herewith portrayed to afford the mortal mind a grasp of the reality and grandeur of the survival existence. Further experience in your advancing careers will increasingly reveal these interesting and charming beings. This narrative cannot be more than a brief outline of the nature and work of the manifold personalities who throng the universes of space administering these creations as enormous training schools, schools wherein the pilgrims of time advance from life to life and from world to world until they are lovingly

으며 파송될 때까지--곧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는 사명에 영원히 배정될 때까지-, 생애에서 생애로, 세계에서 세계로 승진한다.

[창조된 단체의 1,146_번인,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구술했음]

dispatched from the borders of the universe of their origin to the higher educational regime of the superuniverse and thence on to the spirit-training worlds of Havona and eventually to Paradise and the high destiny of the finaliters — the eternal assignment on missions not yet reveal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37:10.7 (417.1) [Dicta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Number 1,146 of the Created Corps.]

제38편. 지방우주의 돌보는 영

⇨ 037

유랜시아 책

039 ⇨

II 부. 지방우주

제38편
지방우주의 돌보는 영

섹션

소개

1. 스라빔의 기원
2. 천사의 본성
3. 계시되지 않은 천사
4. 스랍 세계
5. 스랍의 훈련
6. 스랍의 조직
7. 체루빔과 사노빔
8. 체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9. 중도 피조물

소개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에는 독특한 세 계층이 있다. 성격 급한 그 사도가 **예수**에 관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오른 편에 있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기록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다. 천사는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이며; 권세는 공간에 있는 사자{使者} 무리이며; 능력은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다.

중앙우주의 최고스라빔과 연방우주의 제2스라빔 같이, 스라빔은, 관련된 체루빔 및 사노빔과 함께, 지방우주의 천사 단체를 구성한다.

스라빔은 모두 아주 균일하게 설계된다. 그들은 우주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두루, 최소한의 변이를 나타내며; 모든 영 유형의 인격있는 존재 중에서 표준에 가장 가깝다. 그들의 다양한 계층이, 지역 창조계의 숙련된 공동 사역자 단체를 구성한다.

PAPER 38

MINISTERING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of Seraphim
2. Angelic Natures
3. Unrevealed Angels
4. The Seraphic Worlds
5. Seraphic Training
6. Seraphic Organization
7. Cherubim and Sanobim
8. Evolution of Cherubim and Sanobim
9. The Midway Creatures

INTRODUCTION

38:0.1 (418.1) THERE are three distinct order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impetuous apostle understood this when he wrote respecting Jesus, “who has gone to heaven and is on the right hand of God, angels and authorities and powers being made subject to him.” Angels are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uthorities,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powers,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38:0.2 (418.2) As the supernaphim in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econaphim in a superuniverse, so the seraphim, with the associated cherubim and sanobim, constitute the angelic corps of a local universe.

38:0.3 (418.3) The seraphim are all fairly uniform in design. From universe to universe, throughout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they show a minimum of variation; they are the most nearly standard of all spirit types of personal beings. Their various orders constitute the corps of the skilled and common ministers of the local

creations.

1. 스라빔의 기원

우주 어머니 영이 스라빔을 창조했으며, “원형{原型} 천사들”과 특정한 모범 천사들이 **네바돈**의 초기 시절에 창조된 이래, 계속해서 단위 구성체로--곧 한 번에 41,472명씩-- 기획돼 왔다. **창조주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우주{宇宙} 대표단이, 수많은 **아들** 및 기타 우주 인격체의 창조에 협력한다. 이런 일치된 수고가 완성된 후에, **아들**은 남녀로 된 첫 피조물인 **물질 아들**들의 창조에 참여하고, 한편 **우주 어머니 영**은 동시에 영을 낳기 위해 처음으로 홀로 수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방우주의 스랍 무리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 천사 계층들은, 의지를 지닌 필사 피조물의 진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될 때 기획된다. 나중에 **으뜸 아들**과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창조주 아들**의 초기 창조 도우미로서, **우주 어머니 영**이 비교적 인격을 달성할 때부터 스라빔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 사건 이전에 **네바돈**에서 근무하던 스라빔은 이웃 우주에서 임시로 빌려왔다.

스라빔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있으며;**네바돈** 우주는 아직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성장하고 완성돼가고 있는 우주에서 창조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2. 천사의 본성

천사는 물질로 된 몸이 없지만, 명확한 별개의 존재이며;영 본성이 있고 출처가 있다. 필사자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변형자 또는 전환자의 도움 없이, 너희를 육신 속에 있는 그대로 감지{感知}하며;필사자 생명 양상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관능적이 아닌 감정과 감상{感想}을 모두 공유한다. 그들은 너희가 수고하는, 음악, 예술, 및 진실된 유머를 음미하고 매우 즐긴다. 그들은 너희의 도덕적 갈등과 영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한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며, 너희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스라빔이 매우 다정하고 동정심 많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性}_감정이 있는 피조물은 아니다.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그들과 아주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맨션 세계들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을 것이며;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은, 천사들과 같

1. ORIGIN OF SERAPHIM

38:1.1 (418.4) Seraphim are creat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have been projected in unit formation — 41,472 at a time —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pattern angels” and certain angelic archetypes in the early times of Nebadon.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collaborate in the creation of a large number of Sons and other universe personaliti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is united effort, the Son engages in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Sons, the first of the sex creatures, while the Universe Mother Spirit concurrently engages in her initial solitary effort at spirit reproduction. Thus begins the creation of the seraphic hosts of a local universe.

38:1.2 (418.5) These angelic orders are projected at the time of planning for the evolution of mortal will creatures. The creation of seraphim dates from the attainment of relative personality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not as the later co-ordinate of the Master Son, but as the early creative helper of the Creator Son. Previous to this event the seraphim on duty in Nebadon were temporarily loaned by a neighboring universe.

38:1.3 (418.6) Seraphim are still being periodically created; the universe of Nebadon is still in the making. The Universe Mother Spirit never ceases creative activity in a growing and perfecting universe.

2. ANGELIC NATURES

38:2.1 (419.1) Angels do not have material bodies, but they are definite and discrete beings; they are of spirit nature and origin. Though invisible to mortals, they perceive you as you are in the flesh without the aid of transformers or translators; they intellectually understand the mode of mortal life, and they share all of man's nonsensuous emotions and sentiments. They appreciate and greatly enjoy your efforts in music, art, and real humor. They are fully cognizant of your moral struggles and spiritual difficulties. They love human beings, and only good can result from your efforts to understand and love them.

38:2.2 (419.2) Though seraphim are very affectionate and sympathetic beings, they are not sex-emotion creatures. They are much as you will be on the mansion worlds, where you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but will be as the angels of heaven.” For all who “shall be accounted worthy to attain the mansion worlds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neither do they die any more, for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녀로 된 피조물을 취급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쪽에 가까운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한편 **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남녀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천사들은 대개 여성 대명사로 표현된다.

스라빔은 영적 수준과 사실적 수준 양쪽에서 활약하도록 창조됐다. 그들의 보살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론시아 활동 또는 영 활동 국면은 거의 없다. 천사들은 인격적 신분에서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어떤 기능적 실행에서는 스라빔이 인간을 크게 초월한다. 그들은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지닌다. 예를 들면: “너희의 머리털도 정확하게 계수된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러하지만, 어떤 스라빔이 그 숫자를 세고, 그것을 계속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그런 것을 아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너희가 감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는 정말로 스라빔을 천재 수학자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자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임무를, 스라빔은 아주 쉽게 수행할 수도 있다.

천사는 영적 신분에서 너희보다 높지만, 너희의 재판관도 아니고 고소자(告訴者)도 아니다. 너희가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천사들은, 능력과 세력이 더 크지만,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인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또한 개별 필사자도 동료 피조물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천사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숭배해서는 안 되며;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위대한 스라빔인 **로아라티아**는, 너희 선각자가 “그 천사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 할 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인종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 받은 동료 봉사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스라빔은, 본성과 인격 재능으로 볼 때, 피조물 실존 등급에서 필사자 인종보다 약간 앞서 있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너희는 정말로 그들과 매우 흡사하게 된다.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스라빔을 식별하기 시작할 것이며, 성좌 구체들에서는 그들과 즐겁게 지내겠고, 한편 **살빙톤**에서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안식하고 경배 드리는 자리를 공유할 것이다. 모론시아 상승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영으로 상승하는 동안 내내, 너희가 스라빔과 나누는 형제애는 이상적인 것이며; 너희의 동무관계는 대단할 것이다.

they are equal to the angels.” Nevertheless, in dealing with sex creatures it is our custom to speak of those beings of more direct descent from the Father and the Son as the sons of God, while referring to the children of the Spirit as the daughters of God. Angels are, therefore, commonly designated by feminine pronouns on the sex planets.

38:2.3 (419.3) The seraphim are so created as to function on both spiritual and literal levels. There are few phases of morontia or spirit activity which are not open to their ministrations. While in personal status angels are not so far removed from human beings, in certain functional performances seraphim far transcend them. They possess many powers far beyond human comprehension. For example: You have been told tha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and it is true they are, but a seraphim does not spend her time counting them and keeping the number corrected up to date. Angels possess inherent and automatic (that is, automatic as far as you could perceive) powers of knowing such things; you would truly regard a seraphim as a mathematical prodigy. Therefore, numerous duties which would be tremendous tasks for mortals are performed with exceeding ease by seraphim.

38:2.4 (419.4) Angels are superior to you in spiritual status, but they are not your judges or accusers. No matter what your faults, “the angels, although greater in power and might, bring no accusation against you.” Angels do not sit in judgment on mankind, neither should individual mortals prejudice their fellow creatures.

38:2.5 (419.5) You do well to love them, but you should not adore them; angels are not objects of worship. The great seraphim, Loyaltia, when your seer “fell down to worship before the feet of the angel,” said: “See that you do it not; I am a fellow servant with you and with your races, who are all enjoined to worship God.”

38:2.6 (419.6) In nature and personality endowment the seraphim are just a trifle ahead of mortal races in the scale of creature existence. Indeed, when you are delivered from the flesh, you become very much like them.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begin to appreciate the seraphim, on the constellation spheres to enjoy them, while on Salvington they will share their places of rest and worship with you. Throughout the whole morontia and subsequent spirit ascent, your fraternity with the seraphim will be ideal; your companionship will be superb.

3. 계시되지 않은 천사

지방우주 영토 전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영 존재 계층이 필사자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은, **낙**

3. UNREVEALED ANGELS

38:3.1 (420.1) Numerous orders of spirit beings function throughout the domains of the local

원으로 상승하는 진화 계획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필사자 생존 계획을 운영하는 것과 매우 많이 관련된, **우주 어머니 영**의 스랍 후손 및 관련된 후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러 제한되었다. 지방우주에는 다른 여섯 계층의 관련된 존재, 즉 계시되지 않은 천사들이 봉사하는데,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낙원** 상승과 관련된 지방우주 활동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천사 연합체인 이 여섯 집단을 결코 스라빔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또한 돌보는 영으로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 인격체들은 **네바돈**의 경영 직무 및 기타 직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데, 이 직무는 영적으로 상승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사람의 진보하는 생애에 어떤 면으로도 관련되지 않는다.

4. 스랍 세계

살빙톤 회로에서 아홉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는 스라빔의 세계다. 이 세계들은 각각 여섯 개의 종속 위성을 갖는데, 거기서는 특별 학교들이 모든 국면의 스랍 훈련에 전념한다. 스라빔은 **살빙톤** 구체들 중에서 이 집단을 구성하는 49개의 세계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한편, 일곱 개로 이뤄진 첫째 무리만 독차지한다. 나머지 여섯 무리는,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여섯 계층의 천사 연합체가 차지하고 있으며;그런 집단은 각각 여섯 주요 세계 가운데 하나에 본부를 유지하고, 여섯 종속 위성에서 특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각 천사 계층은 이런 다양한 일곱 집단의 모든 세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이 본부 세계들은 **네바돈**의 장엄한 영역에 속해 있으며;스랍 소유지(所有地)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방대함이다. 여기서 각 스라빔은 실제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이라는 말은 두 스라빔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그들은 쌍으로 생활한다.

스라빔은 **물질 아들**이나 필사자 인종처럼 남성과 여성으로는 아닐지라도,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으로 돼있다. 대부분의 할당된 임무에서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두 천사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회로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홀로 활동할 수 있으며;또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보완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원래 보완 존재를 유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런 연합체들은 우선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며;그들은 매우 인격적이고 정말로 애정이 깊지만, 성적{性的}으로 감응되는 특징은 없다.

지정된 집 외에, 스라빔은 또한 소대{小隊}, 중대{中隊}, 대대{大隊}, 및 연대{聯隊} 본부를 갖

universe that are unrevealed to mortals because they are in no manner connected with the evolutionary plan of Paradise ascension. In this paper the word “angel” is purposely limited to the designation of those seraphic and associated offspring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who are so largely concerned with the operation of the plans of mortal survival. There serve in the local universe six other orders of related beings, the unrevealed angels, who are not in any specific manner connected with those universe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Paradise ascent of evolutionary mortals. These six groups of angelic associates are never called seraphim, neither are they referred to as ministering spirits. These personalities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other affairs of Nebadon, engagements which are in no way related to man's progressive career of spiritual ascent and perfection attainment.

4. THE SERAPHIC WORLDS

38:4.1 (420.2) The ninth group of seven primary sphere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worlds of the seraphim. Each of these worlds has six tributary satellites, whereon are the special schools devoted to all phases of seraphic training. While the seraphim have access to all forty-nine worlds comprising this group of Salvington spheres, they exclusively occupy only the first cluster of seven. The remaining six clusters are occupied by the six orders of angelic associates unrevealed on Urantia; each such group maintains headquarters on one of these six primary worlds and carries on specialized activities on the six tributary satellites. Each angelic order has free access to all the worlds of these seven diverse groups.

38:4.2 (420.3)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mong the magnificent realms of Nebadon; the seraphic estates are characterized by both beauty and vastness. Here each seraphim has a real home, and “home” means the domicile of two seraphim; they live in pairs.

38:4.3 (420.4) Though not male and female as are the Material Sons and the mortal races, seraphim are negative and positive. In the majority of assignments it requires two angels to accomplish the task. When they are not encircuited, they can work alone; neither do they require complements of being when stationary. Ordinarily they retain their original complements of being, but not necessarily. Such associations are primarily necessitated by function; they are not characterized by sex emotion, though they are exceedingly personal and truly affectionate.

38:4.4 (420.5) Besides designated homes, seraphim also have group, company, battalion, and unit

고 있다. 그들은 1,000년마다 재회하기 위해 모여, 자신이 창조된 시기에 맞춰서 모두 출석한다. 어떤 스라빔이 임무를 떠날 수 없는 책임에 묶여 있다면, 보완 존재와 교체되는데, 다른 출생일을 갖는 스라빔에게 맡기고 떠난다. 그리하여 각 스라빔 짝은 적어도 하나 걸러 한 번, 재회에 출석한다.

5. 스라빔의 훈련

스라빔은 **살빙톤** 및 관련된 세계 학교들에서, 임관되지 않은 참관인으로서 첫 1,000년을 보낸다. 두 번째 1,000년은 **살빙톤** 회로의 스라빔 세계들에서 지낸다. 그들의 중앙 훈련 학교를 지금 **네바돈**의 첫 스라빔 10만 명이 관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 지방우주의 원본 천사, 즉 첫 태생 천사다. **네바돈** 스라빔 중에서 처음 창조된 집단은, **아바론**에서 온 1,000명의 스라빔 단체로부터 훈련받았으며; 그 다음에 우리 천사들은 자신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왔다. **멜기세덱** 역시 모든 지방우주 천사들에 대한--곧 스라빔, 체루빔, 및 사노빔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큰 역할을 한다.

살빙톤의 스라빔 세계들에서 이 훈련 기간이 완료되면, 스라빔은 전형적{典型的}인 천사 조직의 집단과 단위로 동원되며, 성좌 가운데 어느 하나에 배정된다. 그들은 아직 돌보는 영으로 임관되지 않았지만, 천사 훈련에서 임명되기_전{前} 단계로 이미 잘 들어가 있다.

스라빔은 진화 세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참관인으로서 봉사함으로, 돌보는 영의 역할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 후에, 상급{上級} 과정을 시작하고, 더 확실하게 어떤 특수한 지역 체계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정된 성좌 본부의 관련된 세계들로 돌아간다. 이런 일반 교육이 있는 후에, 그들은 지역 체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승진된다. 어떤 **네바돈** 체계의 수도와 관련된 건축양식 세계들에서, 우리 스라빔은 훈련을 완결하고, 시간세계를 돌보는 영으로서 임관된다.

스라빔은 일단 임명되고 나면, **네바돈** 전체, 심지어 **오르본톤**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주에서 그들의 업무는 한계와 제한이 없으며; 그들은 여러 세계의 물질 피조물과 긴밀하게 연합하고, 하위 계층의 영적 인격체들을 섬기는데 계속 참여하며, 영 세계의 이 존재들과 물질 영역의 필사자들 사이에서 연락을 취한다.

6. 스라빔의 조직

headquarters. They forgather for reunions every millennium and are all present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their creation. If a seraphim bears responsibilities which forbid absence from duty, she alternates attendance with her complement, being relieved by a seraphim of another birth date. Each seraphic partner is thereby present at least every other reunion.

5. SERAPHIC TRAINING

38:5.1 (420.6) Seraphim spend their first millennium as noncommissioned observers on Salvington and its associated world schools. The second millennium is spent on the seraphic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Their central training school is now presided over by the first one hundred thousand Nebadon seraphim, and at their head is the original or first-born angel of this local universe. The first created group of Nebadon seraphim were trained by a corps of one thousand seraphim from Avalon; subsequently our angels have been taught by their own seniors. The Melchizedeks also have a large part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ll local universe angels — seraphim, cherubim, and sanobim.

38:5.2 (421.1) At the termination of this period of training on the seraphic worlds of Salvington, seraphim are mobilized in the conventional groups and units of the angelic organization and are assigned to some one of the constellations. They are not yet commissioned as ministering spirits, although they have well entered upon the precommissioned phases of angelic training.

38:5.3 (421.2) Seraphim are initiated as ministering spirits by serving as observers on the lowest of the evolutionary worlds. After this experience they return to the associate worlds of the headquarters of the assigned constellation to begin their advanced studies and more definitely to prepare for service in some particular local system. Following this general education they are advanced to the service of some one of the local systems. On the architectural worlds associated with the capital of some Nebadon system our seraphim complete their training and are commissioned as ministering spirits of time.

38:5.4 (421.3) When once seraphim are commissioned, they may range all Nebadon, even Orvonton, on assignment. Their work in the universe is without bounds and limitations;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worlds and are ever in the service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ual personalities, making contact between these beings of the spirit world and the mortals of the material realms.

6. SERAPHIC ORGANIZATION

스라빔은 스랍 본부에서 두 번째 1,000년을 보낸 후에, 우두머리들 밑에 조직되어, 열둘로(곧 12쌍, 24명의 스라빔으로) 소대(小隊)를 이루고, 12개 소대가(곧 144쌍, 288명의 스라빔이) 중대(中隊)를 이루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통솔한다. 12개 중대가(곧 1,728쌍, 즉 3,456명의 스라빔이) 한 명의 지휘관 아래서 한 개의 대대(大隊)를 구성하며, 12개 대대가(곧 20,736쌍, 즉 41,472명의 개체가) 한 명의 지휘자 아래서 한 개의 스랍 사단(師團)을 이루는데, 한 명의 감독관의 명령에 따르는 12개 사단은, 248,832쌍, 즉 497,664명의 개체에 이르는 한 군단(軍團)을 구성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요청하면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를 즉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런 천사 집단을 암시했다.

열두 군단의 천사는 2,985,984쌍, 즉 5,971,968명의 개체에 이르는 한 무리를 구성하며, 그런 열두 무리가(곧 35,831,808쌍, 즉 71,663,616명의 개체가) 가장 큰 스랍 운영 조직, 즉 하나의 천사 군대를 이룬다. 하나의 스랍 군단을 한 명의 천사장이 통솔하거나, 또는 대등한 신분의 다른 어떤 인격체가 통솔하며, 한편 천사 군대들은 **찬란한 저녁별**이 지휘하거나 **가브리엘**의 다른 직속 부관(副官)이 지휘한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 군대들의 최고 사령관”, 즉 “만군의 주(主) 하나님”이신 **네바돈 주권자**의 최고 행정관이다.

스라빔 및 다른 모든 지방우주 계층은, **살빈톤**에서 인격화되면서 **무한한 영**의 직접 감독 아래 근무할지라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후에는 **오름 아들**의 주권에 귀속됐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연방우주 방송이 **네바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급의 천사는 그의 주권에 종속되며; 그들은 “그의 강력한 천사”라고 일컬어 온, 바로 그 집단의 일부다.

7. 체루빔과 사노빔

모든 근본 자질에서,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라빔과 비슷하다. 그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지만, 운명이 항상 같지는 않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성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유능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애정이 깊고, 거의 인간답다. 그들은 천사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데, 따라서 진화 세계에 있는 인간 가운데 더 친취적인 유형에 가장 가깝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내재적으로 관련돼 있고, 기능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자(前者)는 양성 에너지 인격체이고; 후자는 음성 에너지 인격체다. 오른쪽 방향의 편향기(偏向器), 즉 양성으로 축적된

38:6.1 (421.4) After the second millennium of sojourn at seraphic headquarters the seraphim are organized under chiefs into groups of twelve (12 pairs, 24 seraphim), and twelve such groups constitute a company (144 pairs, 288 seraphim), which is commanded by a leader. Twelve companies under a commander constitute a battalion (1,728 pairs or 3,456 seraphim), and twelve battalions under a director equal a seraphic unit (20,736 pairs or 41,472 individuals), while twelve units, subject to the command of a supervisor, constitute a legion numbering 248,832 pairs or 497,664 individuals. Jesus alluded to such a group of angels that nigh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hen he said: “I can even now ask my Father, and he will presently give me more than twelve legions of angels.”

38:6.2 (421.5) Twelve legions of angels comprise a host numbering 2,985,984 pairs or 5,971,968 individuals, and twelve such hosts (35,831,808 pairs or 71,663,616 individuals) make up the largest operating organization of seraphim, an angelic army. A seraphic host is commanded by an archangel or by some other personality of coordinate status, while the angelic armies are direct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r by other immediate lieutenants of Gabriel. And Gabriel i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rmies of heaven,” the chief executive of the Sovereign of Nebadon, “the Lord God of hosts.”

38:6.3 (421.6) Though serving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alized on Salvington,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seraphim and all other local universe orders have become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Master Son. Even when Michael was born of the flesh on Urantia, there issued the superuniverse broadcast to all Nebadon which proclaimed, “And let all the angels worship him.” All ranks of angels are subject to his sovereignty; they are a part of that group which has been denominated “his mighty angels.”

7. CHERUBIM AND SANOBIM

38:7.1 (422.1) In all essential endowments cherubim and sanobim are similar to seraphim. They have the same origin but not always the same destiny. They are wonderfully intelligent, marvelously efficient, touchingly affectionate, and almost human. They are the lowest order of angels, hence all the nearer of kin to the more progressive types of human beings on the evolutionary worlds.

38:7.2 (422.2) Cherubim and sanobim are inherently associated, functionally united. One is an energy positive personality; the other, energy negative. The right-hand deflector, or positively charged

천사가 체루빔이다--곧 선배, 즉 통제하는 인격체다. 왼쪽 방향의 편향기, 즉 음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사노빔이다--곧 보완하는 존재다. 각 천사 유형은 혼자만의 기능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따라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근무한다. 스랍 지휘자들로부터 독립되어 근무할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상호 접촉에 의존하며, 항상 함께 활동한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랍 사역자의 충실하고 유능한 조력자이며, 일곱 계층의 전체 스라빔에게 이런 중속 보좌관들이 배정돼 있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이런 자격으로 긴 세월 근무하지만, 지방우주의 경계를 벗어나는 임무에서는 스라빔과 동행하지 않는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체계의 개별 세계에서 일하는 일상적인 영 일꾼이다. 그들은 개인적이 아닌 임무와 긴급사태에서, 스랍 쌍을 대신하여 이바지할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해 관여하는 천사로서는 잠시라도 활동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그것은 스랍의 독점적 특권이다.

행성에 배정됐을 때, 체루빔은 행성의 관습과 언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국지적 훈련 과정에 참여한다.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들은 모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데,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의 언어와 자신이 출생한 연방우주 언어가 그것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학교에서 공부함으로써 다른 언어를 추가로 습득한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라빔 및 다른 모든 계층의 영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_향상시키려고 계속 힘쓴다. 동력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하위 존재들만 진보할 능력이 없으며;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격 의지작용을 소유한 모든 피조물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한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본질적으로 모론시아 실존 수준에 매우 가까우며,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영토의 경계지대 업무에서 가장 유능한 것이 입증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의 특징은, “넷째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하보나 하인** 및 화해시키는 위원회들과 매우 비슷하다. 체루빔 중에서 넷째마다, 그리고 사노빔 중에서 넷째마다 유사{類似}_물질인데, 모론시아 실존 수준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넷째 천사 피조물은, 스라빔의 우주 및 행성 활동 가운데 더 엄밀한 국면에서 그들에게 크게 도움 된다. 그런 모론시아 체루빔은 또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경계선에 있는 필요불가결한 과제를 많이 수행하며, 많은 숫자로 **모론시아 동무들**의 근무에 배정된다. 중도 피조물과 진화 행성들의 관계는, 대체로 그들과 모론시아 구체의 관계와 같다. 이 모론시아 체루빔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종종 중도 피조물과 접촉하면서 일한다. 체루빔과 중도 피조물은 명확하게 분리된 계층의 존재이며;그들은 서로 다르게 기원됐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매우 비슷함을 드러낸다.

angel, is the cherubim — the senior or controlling personality. The left-hand deflector, or negatively charged angel, is the sanobim — the complement of being. Each type of angel is very limited in solitary function; hence they usually serve in pairs. When serving independently of their seraphic directors, they are more than ever dependent on mutual contact and always function together.

38:7.3 (422.3) Cherubim and sanobim are the faithful and efficient aids of the seraphic ministers, and all seven orders of seraphim are provided with these subordinate assistants. Cherubim and sanobim serve for ages in these capacities, but they do not accompany seraphim on assignments beyond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38:7.4 (422.4) The cherubim and sanobim are the routine spirit workers on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systems. On a nonpersonal assignment and in an emergency, they may serve in the place of a seraphic pair, but they never function, even temporarily, as attending angels to human beings; that is an exclusive seraphic privilege.

38:7.5 (422.5) When assigned to a planet, cherubim enter the local courses of training, including a study of planetary usages and languages.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all bilingual, speaking the language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origin and that of their native superuniverse. By study in the schools of the realms they acquire additional tongues. Cherubim and sanobim, like seraphim and all other orders of spirit beings, are continuously engaged in efforts at self-improvement. Only such as the subordinate beings of power control and energy direction are incapable of progression; all creatures having actual or potential personality volition seek new achievements.

38:7.6 (422.6) Cherubim and sanobim are by nature very near the morontia level of existence, and they prove to be most efficient in the borderland work of the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domains. These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re characterized by “fourth creatures” much as are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Every fourth cherubim and every fourth sanobim are quasi-material, very definitely resembling the morontia level of existence.

38:7.7 (422.7) These angelic fourth creatures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seraphim in the more literal phases of their universe and planetary activities. Such morontia cherubim also perform many indispensable borderline tasks on the morontia training worlds and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Morontia Companions in large numbers. They are to the morontia spheres about what the midway creatures are to the evolutionary planets.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morontia cherubim frequently work in liaison with the midway creatures. Cherubim and midway creatures are

8. 체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신분 향상으로 이끄는, 승진하는 근무로 이끄는 수많은 길이, 체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려 있는데, **신성한 사역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현저히 확장될 수 있다. 진화 잠재력을 고려할 때, 크게 세 등급의 체루빔과 사노빔이 있다:

1. **상승 후보자**. 이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스랍 신분이 될 수 있는 후보자다. 이 계층의 체루빔과 사노빔은, 타고난 재능에서 스라빔과 대등하지는 않아도 뛰어난 존재이지만; 열심과 체험으로, 그들은 충분한 스랍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중간 국면 체루빔**. 모든 체루빔과 사노빔은 상승 잠재력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천사로 창조될 때 본래부터 제한된 존재다. 그들 대부분이 체루빔과 사노빔으로 남더라도, 더 재능 있는 개체들은 제한된 스랍 봉사를 성취할 수도 있다.

3. **모론시아 체루빔**. 천사 계층 중에서 이 “넷째 피조물”은 항상 유사(類似)-물질 특질을 갖는다. **지존하신 분**이 완벽하게 사실화할 때까지, 그들은 중간 국면에 있는 그 형제들 대부분과 함께 체루빔과 사노빔으로서 남을 것이다.

둘째와 셋째 집단은 성장 잠재력에서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상승 후보자들은 보편적인 높은 위치의 스랍 봉사를 달성할 것이다. 이 체루빔 중에서 더 많은 체험을 한 존재 가운데 다수는 운명의 스랍 수호자들에게 배속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스랍 선배들이 자리를 비울 때, **맨션 세계 교사**의 신분으로 승진되는 직계 계통에 자리 잡게 된다. 운명 수호자들은, 자신이 보호하는 필사자가 모론시아 생애를 달성할 때, 체루빔과 사노빔을 도우미로 두지 않는다. 그리고 진화하는 다른 유형의 스라빔이 **살빙톤**과 **낙원**을 향해서 떠나도록 허락을 받을 때, **네바돈** 구역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은 예전의 부하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 관계가 끊어진 그런 체루빔과 사노빔은 대개 **우주 어머니 영**의 품으로 들어가며, 그리하여 스랍 신분을 달성할 때 **맨션 세계 교사**의 수준에 상당하는 어떤 수준을 성취한다.

맨션 세계 교사로서, 한때 포용됐던 체루빔과 사노빔이 모론시아 구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그리고 **살빙톤**에 있는 그들의 단체가 과도

distinctly separate orders of beings; they have dissimilar origins, but they disclose great similarity in nature and function.

8. EVOLUTION OF CHERUBIM AND SANOBIM

38:8.1 (423.1) Numerous avenues of advancing service are open to cherubim and sanobim leading to an enhancement of status, which may be still further augmented by the embrace of the Divine Minister. There are three great classes of cherubim and sanobim with regard to evolutionary potential:

38:8.2 (423.2) 1. *Ascension Candidates*. These beings are by nature candidates for seraphic status. Cherubim and sanobim of this order are brilliant, though not by inherent endowment equal to the seraphim; but by application and experience it is possible for them to attain full seraphic standing.

38:8.3 (423.3) 2. *Mid-phase Cherubim*. All cherubim and sanobim are not equal in ascension potential, and these are the inherently limited beings of the angelic creations. Most of them will remain cherubim and sanobim, although the more gifted individuals may achieve limited seraphic service.

38:8.4 (423.4) 3. *Morontia Cherubim*. These “fourth creatures” of the angelic orders always retain their quasi-material characteristics. They will continue on as cherubim and sanobim, together with a majority of their mid-phase brethren, pending the completed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38:8.5 (423.5) While the second and third groups are somewhat limited in growth potential, the ascension candidates may attain the heights of universal seraphic service. Many of the more experienced of these cherubim are attached to the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and are thus placed in direct line for advancement to the status of Mansion World Teachers when deserted by their seraphic seniors. Guardians of destiny do not have cherubim and sanobim as helpers when their mortal wards attain the morontia life. And when other types of evolutionary seraphim are granted clearance for Seraphington and Paradise, they must forsake their former subordinates when they pass out of the confines of Nebadon. Such deserted cherubim and sanobim are usually 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us achieving a level equivalent to that of a Mansion World Teacher in the attainment of seraphic status.

38:8.6 (423.6) When, as Mansion World Teachers, the once-embraced cherubim and sanobim have long served on the morontia spheres,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and when their corps on

하게 모집됐을 때, **빛나는 새벽별**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을 돌보는 이 충성스런 하인들에게 자기 앞으로 출두하라고 호출한다. 인격 변형 서약이 실시되며; 이렇게 승진된 선임 체루빔과 사노빔은, 그때부터 7,000명씩 무리지어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용된다. 이렇게 두 번째 포용된 때부터 그들은 다_자란 스라빔으로서 출현한다. 그때부터 스라빔의 충만하고 완성된 생애가, 그 모든 **낙원** 가능성과 함께, 그렇게 다시 태어난 체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린다. 그런 천사들은 어떤 필사 존재에게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될 수 있으며, 그 필사 피보호자가 생존을 달성하면, 그들은 **스라빙톤**까지 그리고 스랍이 달성하는 일곱 궤도까지, 심지어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까지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9. 중도 피조물

중도 피조물은 삼중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며; 실제로는 영구 시민자격 계층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으로 알려지는데, 공간의 개별 세계에서 긴밀하게 효과적으로 천사 무리와 연합해서 필사적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독특한 이 피조물은 인간거주 세계 대부분에 출현하며, **유란시아** 같은 10진{十進} 행성, 즉 생명을 실험하는 행성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중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곧 1차 및 2차로--돼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법에 따라 출현한다:

1. **1차 중도자**는, 비교적 더 영적인 집단이고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층인데, 한결같이 **행성 왕자**의 변경된 상승 필사자 참모들로부터 유래된다. 1차 중도 피조물의 숫자는 반드시 5만 명이며, 그들의 돌봄을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소유할 수 없다.

2. **2차 중도자**는, 이 피조물 가운데 비교적 더 물질적인 집단인데, 평균 5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마다 숫자가 크게 다르다. 그들은 행성의 생물학적 개량자{改良者}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또는 그들의 직계 자손으로부터 다양하게 유래된다.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이 2차 중도 피조물의 생산에는 적어도 스물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법이 관련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이 집단이 기원된 방식은 색다르고 이례적이었다.

이 집단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진화에서 우연히 생기지 않았으며; 두 가지 모두 우주 설계자들이 미리 결정한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특색이며, 진화하는 세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은 감독하

Salvington is overrecruite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ummons these faithful servants of the creatures of time to appear in his presence. The oath of personality transformation is administered; and thereupon, in groups of seven thousand, these advanced and senior cherubim and sanobim are re-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From this second embrace they emerge as full-fledged seraphim. Henceforth, the full and complete career of a seraphim, with all of its Paradise possibilities, is open to such reborn cherubim and sanobim. Such angels may be assigned as guardians of destiny to some mortal being, and if the mortal ward attains survival, then do they become eligible for advancement to Seraphington and the seven circles of seraphic attainment, even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9. THE MIDWAY CREATURES

38:9.1 (424.1) The midway creatures have a threefold classification: They are properly classified with the ascending Sons of God; they are factually grouped with the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while they are functionally reckoned with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because of their intimate and effective association with the angelic hosts in the work of serving mortal man on the individual worlds of space.

38:9.2 (424.2) These unique creatures appear on the majority of the inhabited worlds and are always found on the decimal or life-experiment planets, such as Urantia. Midwayers are of two types — primary and secondary — and they appear by the following techniques:

38:9.3 (424.3) 1. *Primary Midwayers*, the more spiritual group, are a somewhat standardized order of beings who are uniformly derived from the modified ascendant-mortal staffs of the Planetary Princes. The number of primary midway creatures is always fifty thousand, and no planet enjoying their ministry has a larger group.

38:9.4 (424.4) 2. *Secondary Midwayers*, the more material group of these creatures, vary greatly in numbers on the different worlds, though the average is around fifty thousand. They are variously derived from the planetary biologic uplifters, the Adams and Eves, or from their immediate progeny. There are no less than twenty-four diverse techniqu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se secondary midway creatur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 mode of origin for this group on Urantia was unusual and extraordinary.

38:9.5 (424.5) Neither of these groups is an evolutionary accident; both are essential features in the predetermined plans of the universe architects, and their appearance on the evolving

는 **생명 운반자**들의 원본 설계도와 발전적 계획에 따라서 출현한다.

1차 중도자들은, 천사의 기법{技法}에 따라서 지적{知的}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며, 지적 상태에서 균일하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오직 여섯째와 일곱째, 즉 경배의 기질과 지혜의 기질만이 2차 집단에게 이바지할 수 있다.

2차 중도자들은, **아담**의 기법에 따라서 물리적 에너지를 얻고, 스라빔의 기법에 따라서 영적으로 회로화{回路化}되며, 모론시아 변환 유형의 정신을 지적으로 부여받는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 영적으로는 일곱 계층, 그리고 마지막 두 보조 영 및 모론시아 정신의 공동 사역에 대해 지적으로 반응하는 열두 수준으로 나뉜다. 이런 다양성이 그들의 활동의 차이와 행성 임무의 차이를 결정한다.

1차 중도자들은 필사자보다 천사를 더 닮았으며; 2차 계층은 훨씬 더 인간과 흡사하다. 그들은 다양한 행성 임무를 이행할 때 서로 다른 계층에게 매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다. 1차 사역자들은, 모론시아_에너지 및 영_에너지 통제관과 정신 회로자{回路者}들, 이 둘과 협동하여 접촉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오직 물리 통제관 및 물질_회로 조종자들과 실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중도자 계층이 다른 계층과 완전히 동시에 접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둘 가운데 어느 집단이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 세계의 총체적 물리 동력으로부터, 우주 에너지의 과도기 국면을 거쳐서, 천상의 영역의 비교적 고등 영_실체 세력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 범위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간격에, 필사적 사람,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 모론시아 체루빔, 중간_단계 체루빔, 그리고 스라빔의 순차적인 연합이 완전하게 다리를 놓는다. 어떤 개별 필사자의 개인 체험에서 이 다양한 수준은, 신성한 **사 고 조율사**의 관찰되지 않는 신비로운 작용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어느 정도 통합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된다.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1차 중도자들이 정보 단체로서, 그리고 **행성 왕자**를 대신하는 천상의 위안자{慰安者}로서 봉사를 계속하며, 한편 2차 사역자들은 점진적인 행성 개화{開化}의 근거를 촉진시키는 **아담** 체제와 계속 협동한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성 왕자**의 변절과 **물질 아들**의 실패가 발생된 경우에, 중도 피조물은 **체계 주권자**의 피보호자가 되며, 그 행성의 직무 대행 관리인의 지휘와 안내를 받아서 근무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는 오직 3개의 다른 세계에서

worlds at the opportune juncture i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designs and developmental plans of the supervising Life Carriers.

38:9.6 (424.6) Primary midwayers are energized intellectually and spiritually by the angelic technique and are uniform in intellectual status.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make no contact with them; and only the sixth and the seventh, the spirit of worship and the spirit of wisdom, are able to minister to the secondary group.

38:9.7 (424.7) Secondary midwayers are physically energized by the Adamic technique, spiritually encircled by the seraphic, and intellectually endowed with the morontia transition type of mind. They are divided into four physical types, seven orders spiritually, and twelve levels of intellectual response to the joint ministry of the last two adjutant spirits and the morontia mind. These diversities determine their differential of activity and of planetary assignment.

38:9.8 (424.8) Primary midwayers resemble angels more than mortals; the secondary orders are much more like human beings. Each renders invaluable assistance to the other in the execution of their manifold planetary assignments. The primary ministers can achieve liaison co-operation with both morontia- and spirit-energy controllers and mind circuiters. The secondary group can establish working connections only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aterial-circuit manipulators. But since each order of midwayer can establish perfect synchrony of contact with the other, either group is thereby able to achiev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entire energy gamut extending from the gross physical power of the material worlds up through the transition phases of universe energies to the higher spirit-reality forces of the celestial realms.

38:9.9 (425.1) The gap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worlds is perfectly bridged by the serial association of mortal man, secondary midwayer, primary midwayer, morontia cherubim, mid-phase cherubim, and seraphim.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an individual mortal these diverse levels are undoubtedly more or less unified and made personally meaningful by the unobserved and mysterious operations of the divine Thought Adjuster.

38:9.10 (425.2) On normal worlds the primary midwayers maintain their service as the intelligence corps and as celestial entertainers in behalf of the Planetary Prince, while the secondary ministers continue their co-operation with the Adamic regime of furthering the cause of progressive planetary civilization. In case of the def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failure of the Material Son, as occurred on Urantia, the midway creatures become the wards of the System Sovereign and serve under the directing

만, **유란시아**의 결합된 중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통합된 지도체제 밑에서 이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활동한다.

1차 및 2차 중도자가 행성에서 하는 업무는 우주의 수많은 개별 세계에서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정상적이고 평범한 행성에서 그들의 활동은, **유란시아** 같은 고립된 구체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임무와는 매우 다르다.

1차 중도자들은 행성의 역사가이며, **행성 왕자**가 도착한 때부터 빛과 생명이 정착되는 시기까지의 야외극을 꾸미고 행성 역사에 대한 묘사를 계획하는데, 행성을 체계 본부 세계들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중도자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오랜 기간 머물지만, 자신의 책임에 충실하면, 그들은 결국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창조주 아들**의 주권 유지에 오랫동안 이바지한 것에 대해 인정받게 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물질 필사자에게 인내심으로 사역했던 것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은 모든 중도 피조물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반열(班列)로 들어갈 것이며, 자신의 이 세상 형제인, 동물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필사자, 즉 그들이 그토록 선망하면서 보호했던, 그리고 오래 행성에 머물면서 그토록 효과적으로 이바지했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낙원**으로 상승하는 긴 모험에 당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네바돈의 스랍 군대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는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guidance of the acting custodian of the planet. But on only three other worlds in Satania do these beings function as one group under unified leadership as do the united midway ministers of Urantia.

38:9.11 (425.3) The planetary work of both primary and secondary midwayers is varied and diverse on the numerous individual worlds of a universe, but on the normal and average planets their activitie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duties which occupy their time on isolated spheres, such as Urantia.

38:9.12 (425.4) The primary midwayers are the planetary historians who, from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age of settled light and life, formulate the pageants and design the portrayals of planetary history for the exhibits of the planets on the system headquarters worlds.

38:9.13 (425.5) Midwayers remain for long periods on an inhabited world, but if faithful to their trust, they will eventually and most certainly be recognized for their agelong service in maintaining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 they will be duly rewarded for their patient ministry to the material mortals on their world of time and space. Sooner or later all accredited midway creatures will be mustered into the rank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and will be duly initiated into the long adventure of the Paradise ascent in company with those very mortals of animal origin, their earth brethren, whom they so jealously guarded and so effectively served during the long planetary sojourn.

38:9.14 (425.6) [Presented by a Melchizedek acting by request of the Chief of the Seraphic Hosts of Nebadon.]

제39편. 스랍 우리

⇨ 038

유랜시아 책

040 ⇨

II 부. 지방우주

제39편
스랍 우리

섹션

소개

1. 최고 스라빔
2. 고위 스라빔
3. 감독관 스라빔
4. 경영자 스라빔
5. 행성 도우미
6. 과도기 사역자
7. 미래의 스라빔
8. 스랍의 운명
9. 완료 스랍 단체

소개

우리가 인지하는 한, 지방우주 본부에서 인격화된 **무한한 영**은 확일적으로 완전한 스라빔을 산출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스랍 후손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은 진화하는 체험적 **신격**의 알려지지 않은 간섭으로 말미암는 결과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라빔이 교육 시험과 연습 훈련을 받아야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분류되는 것을 목격했다:

1. **최고 스라빔.**
2. **고위{高位} 스라빔.**
3. **감독관 스라빔.**
4. **경영자 스라빔.**
5. **행성 도우미.**
6. **과도기 사역자.**
7. **미래의 스라빔.**

PAPER 39

THE SERAPHIC HOSTS

SECTIONS

Introduction

1. Supreme Seraphim
2. Superior Seraphim
3. Supervisor Seraphim
4. Administrator Seraphim
5. Planetary Helpers
6. Transition Ministers
7. Seraphim of the Future
8. Seraphic Destiny
9.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INTRODUCTION

39:0.1 (426.1) AS FAR as we are cognizant,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alized on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intends to produce uniformly perfect seraphim, but for some unknown reason these seraphic offspring are very diverse. This diversity may be a result of the unknown interposition of evolving experiential Deity; if so, we cannot prove it. But we do observe that, when seraphim have been subjected to educational tests and training discipline, they unfailingly and distinctly classify into the following seven groups:

39:0.2 (426.2) 1. Supreme Seraphim.

39:0.3 (426.3) 2. Superior Seraphim.

39:0.4 (426.4) 3. Supervisor Seraphim.

39:0.5 (426.5) 4. Administrator Seraphim.

39:0.6 (426.6) 5. Planetary Helpers.

39:0.7 (426.7) 6. Transition Ministers.

39:0.8 (426.8) 7. Seraphim of the Future.

~ ~ ~ (426.9) ~ ~ ~

어떤 한 스라빔이 다른 집단의 어떤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럼에도 어떤 천사든지 처음에는 원래 선천적으로 분류된 집단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할 당시에, 나의 스랍 동료인 **마노티아**는 최고 스라빔이고, 한때는 오직 최고 스라빔으로서만 활동했다. 헌신적인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는 일곱 가지 스랍 봉사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했는데, 스라빔에게 개방된 거의 모든 활동 경로에서 작용해 왔으며, 현재는 **유란시아**에서 스라빔의 부(副) 우두머리라는 위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높은 수준에서 사역하도록 고안된 능력이, 낮은 봉사 수준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사람은 무기력한 아기로써 인생을 시작하며; 따라서 필사자가 무엇을 달성하든지 모든 체험적 선행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스라빔에게는 그런 어른이 되기 전의 삶이--곧 어린 시절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체험하는 피조물이며, 체험함으로써 그리고 추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랍 봉사에서 기능적 솜씨를 체험으로 획득하여, 신(神)에게서 받은 자신의 선천적 재능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임관된 후에, 스라빔은 그들 본래 집단의 예비군에 배정된다. 행성에 속하고 경영자 지위에 있는 자는, 원래 분류된 그대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천사 사역자들은 내재적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우주 봉사 중에서 더 낮은 계층에 배정되기를 더욱 고집스럽게 추구한다. 그들은 특히 행성 도우미 예비군에 배정되기를 바라며, 성공하게 되면, 어떤 진화 세계에서 **행성 왕자** 본부에 배속된 천상의 학교에 들어간다. 그들은 여기서 인류의 여러 인종의 언어, 역사, 및 지역 관습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스라빔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인격 속성에서는 너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밑바닥에서, 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사역에서 출발하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체험적 운명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

1. 최고 스라빔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 천사들의 계시된 일곱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들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하는데, 각각 **완료 스랍 단체**의 천사 사역자들과 밀접하게 연합돼 있다.

1. **아들 영 사역자**. 최고 스라빔 중에서 첫 집단은, 지방우주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높은 **아들**과 **영**에서 기원된 존재들의 근무에 배정돼 있다. 천사 사역자인 이 집단은 또한 **우주 아들** 및 **우**

39:0.9 (426.9) To say that any one seraphim is inferior to an angel of any other group would hardly be true. Nevertheless every angel is at first service-limited to the group of original and inherent classification. My seraphic associate in the preparation of this statement, Manotia, is a supreme seraphim and onetime functioned only as a supreme seraphim. By application and devoted service she has, one by one, achieved all seven of the seraphic services, having functioned in well-nigh every avenue of activity open to a seraphim, and now holds the commission of associate chief of seraphim on Urantia.

39:0.10 (426.10) Human beings sometimes find it hard to understand that a created capacity for higher-level ministry does not necessarily imply ability to function on relatively lower service levels. Man begins life as a helpless infant; hence every mortal attainment must embrace all experiential prerequisites; seraphim have no such preadult life — no childhood. They are, however, experiential creatures, and by experience and through additional education they can augment their divine and inherent endowment of ability by the experiential acquirement of functional skill in one or more of the seraphic services.

39:0.11 (426.11) After being commissioned,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reserves of their inherent group. Those of planetary and administrator status often serve for long periods as originally classified, but the higher the inherent function level, the more persistently do the angelic ministers seek assignment to the lower orders of universe service. Especially do they desire assignment to the reserves of the planetary helpers, and if successful they enroll in the celestial schools attach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of some evolutionary world. Here they begin the study of the languages, history, and local habits of the races of mankind. Seraphim must acquire knowledge and gain experience much as do human beings. They are not far removed from you in certain personality attributes. And they all crave to start at the bottom, on the lowest possible level of ministry; thus may they hope to achieve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experiential destiny.

1. SUPREME SERAPHIM

39:1.1 (427.1) These seraphim are the highest of the seven revealed orders of local universe angels. They function in seven groups, each of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ngelic ministe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1.2 (427.2) 1. *Son-Spirit Ministers*. The first group of the supreme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high Sons and Spirit-origin beings resident and functioning in the local universe. This group of angelic ministers also serve the Universe

주 영을 섬기며,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일치된 뜻을 시행하는, 우주 행정관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정보 단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고 위 **아들**과 **영**들에게 배정됐기 때문에, 이 스라빔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신성한 자손인 **낙원 아보날**들의 광범한 근무에 자연스럽게 연합된다. **낙원 아보날**들은, 높고 노련한 계층인 이 스라빔을 통해서 모든 집행관 사명 및 증여 사명에 항상 참여하는데, 그들은 그런 때에 행성의 한 섭리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시{開始}와 관련된 특별한 업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섭리시대의 변경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증여 수행원. **창조주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낙원 아보날**이 증여 사명을 수행할 때에는 144명의 증여 수행원을 항상 대동한다. 이 144명의 천사는, 증여 사명과 연합될 모든 다른 **아들_영** 사역자의 우두머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성에 증여되어 육신화할 때,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 군단{軍團}들이 어찌면 있을 수 있지만, 144명의 증여 수행원이 이 스라빔 전체를 조직하고 지휘할 것이다. 더 높은 계층의 천사들, 즉 최고 스라빔과 제2스라빔 역시 참석한 무리 가운데 일부가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임무가 스라빔의 임무와 다를지라도, 증여 수행원들이 이 활동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 증여 수행원들은 완료 스라빔이며; 그들은 모두 **스라빔톤** 케도들을 거쳤고 **완료 스랍 단체**를 달성했다.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증여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은 더 많은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 그런 스라빔은 모두 **낙원**에 도달했고, **제2 근원 및 중심인 영원한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포용됐다.

스라빔은 육신화 된 **아들**의 사명에 배정되는 것과, 그 영역의 필사자에게 운명 수호자로서 배속될 것을 똑같이 열망하며; 후자는 **낙원**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스랍 신분증이고, 한편 증여 수행원은, **낙원**에 도달한 완료 스라빔으로서 가장 고상한 봉사를 지방우주에서 성취했다.

2. **법정 고문**. 화해자들로부터 그 영역의 가장 높은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든 판결 계층에 배속된 스랍 충고자 및 도우미다. 그런 재판소의 목적은, 정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견해 차이를 판정하고, 상충하는 필사

Son and the Universe Spirit and are closely affiliated with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universe chief executive of the united wills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39:1.3 (427.3) Being of assignment to the high Sons and Spirits, these seraphim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far-flung services of the Paradise Avonals, the divine offspring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Paradise Avonals are always attended on all magisterial and bestowal missions by this high and experienced order of seraphim, who are at such times devoted to organizing and administering the special work connected with the termination of one planetary dispensation and the inauguration of a new age. But they are not concerned in the work of adjudication which might be incidental to such a change in dispensations.

39:1.4 (427.4) *Bestowal Attendants.* Paradise Avonals, but not Creator Sons, when on a bestowal mission are always accompanied by a corps of 144 bestowal attendants. These 144 angels are the chiefs of all other Son-Spirit ministers who may be associated with a bestowal mission. There might possibly be legions of angels subject to the command of an incarnated Son of God on a planetary bestowal, but all these seraphim would be organized and directed by the 144 bestowal attendants. Higher orders of angels, supernaphim and seconaphim, might also form a part of the attending host, and though their missions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seraphim, all these activities would be co-ordinated by the bestowal attendants.

39:1.5 (427.5) These bestowal attendants are completion seraphim; they have all traversed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have attained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And they have been further especially trained to meet the difficulties and to cope with the emergencies associated with the bestowals of the Sons of God for the advancement of the children of time. Such seraphim have all achieved Paradise and the personal embrace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Eternal Son.

39:1.6 (427.6) Seraphim equally crave assignment to the missions of the incarnated Sons and attachment as destiny guardians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the latter is the surest seraphic passport to Paradise, while the bestowal attendants have achieved the highest local universe service of the completion seraphim of Paradise attainment.

39:1.7 (428.1) 2. *Court Advisers.* These are the seraphic advisers and helpers attached to all orders of adjudication, from the conciliators up to the highest tribunals of the realm. It is not the purpose of such tribunals to determine punitive

자의 영원한 생존을 선포하는 것이다. 법정 충고자들의 임무가 여기 있는데: 필사 피조물에 대한 모든 고발이 공정하게 주장되고 자비롭게 판결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은 **고위 책임자**, 즉 지방우주에서 근무하는, **영과**—융합된 상승 필사자들과 긴밀히 연합돼 있다.

스랍 법정 고문은, 필사자의 변호인으로서 광범하게 근무한다. 그 영역의 낮은 피조물에게 어떤 불공정한 처분이든지 내려진 적이 전혀 없었지만, 신성한 완전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태만이 있든지, 그 판결을 응보가 소환하는 반면,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피조물 본성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자비가 요구한다. 이 천사들은 신성한 응보에—곧 개인적 동기와 인종적 성향이라는 근원적 사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공정성에—내재된 자비의 요소를 설명하고 예증하는 존재다.

이 계층의 천사들은, **행성 왕자** 협의회로부터 지방우주의 가장 높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며, 한편 **완료 스텝 단체**에 속한 그들의 동역자들은, **오르본톤**의 더 높은 영역들에서, 심지어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서도 활동한다.

3. **우주 순응 지휘자**. 상승하는 피조물이 방대한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그들 앞에 펼쳐질 영모험에 임하기 직전에, 자신이 기원된 우주에서, **살빙톤**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숨 돌리고 있을 때, 이 지휘자들은 그들 모두의 참된 친구인 동시에 졸업이후의 조언자다. 그리고 그런 때에 수많은 상승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간 감정과 비교함으로써만 필사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 뒤에는 성취한 영역, 즉 오랫동안 봉사하고 모른시아를 달성해서 친숙해진 영역들이 있으며; 앞에는 더 크고 방대한 우주가 매력을 발산하면서 신비롭게 놓여 있다.

우주 순응 지휘자들의 과제는, 우주 봉사에서 달성된 수준으로부터 달성되지 않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쉽게 통과하도록 돕는 것인데, 첫 단계 영 존재가 서있는 곳이 지방우주 모른시아 상승의 끝과 최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상승하는 긴 사다리의 아주 밑바닥이라는, 그 깨달음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터득하면서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이 순례자들을 돕는다.

스라빙톤 졸업자 가운데 다수는, 이 스라빔과 연합돼 있는 **완료 스텝 단체**의 구성원이며, 다음 우주 시대의 관계들을 위하여 **네바돈**의 피조물들 준비시키기에 관여하는 어떤 **살빙톤** 학교에서, 다방면의 가르침에 종사한다.

sentences but rather to adjudicate honest differences of opinion and to decree the everlasting survival of ascending mortals. Herein lies the duty of the court advisers: to see that all charges against mortal creatures are stated in justice and adjudicated in mercy. In this work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gh Commissioners, Spirit-fused ascendant mortals serving in the local universe.

39:1.8 (428.2) The seraphic court advisers serve extensively as defenders of mortals. Not that there ever exists any disposition to be unfair to the lowly creatures of the realms, but while justice demands the adjudication of every default in the climb towards divine perfection, mercy requires that every such misstep be fairly ad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creature nature and the divine purpose. These angels are the exponents and exemplification of the element of mercy inherent in divine justice — of fairnes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underlying facts of personal motives and racial tendencies.

39:1.9 (428.3) This order of angels serves from the councils of the Planetary Princes to the highest tribunals of the local universe, while their associate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function in the higher realms of Orvonton, even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39:1.10 (428.4) 3. *Universe Orientators*. These are the true friends and postgraduate counselors of all those ascending creatures who are pausing for the last time on Salvington, in their universe of origin, as they stand on the brink of the spirit adventure stretching out before them in the vast superuniverse of Orvonton. And at such a time many an ascender has a feeling which mortals could understand only by comparison with the human emotion of nostalgia. Behind lie the realms of achievement, realms grown familiar by long service and morontia attainment; ahead lies the challenging mystery of a greater and vaster universe.

39:1.11 (428.5) It is the task of the universe orientators to facilitate the passage of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attained to the unattained level of universe service, to help these pilgrims in making those kaleidoscopic adjustments in the comprehension of meanings and values inherent in the realization that a first-stage spirit being stands, not at the end and climax of the local universe morontia ascent, but rather at the very bottom of the long ladder of spiritual ascent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39:1.12 (428.6) Many of the Seraphington graduates, membe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who are associated with these seraphim, engage in extensive teaching in certain Salvington schools concerne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creatures of Nebadon for the relationships of the next universe

4. **교육 상담자**. 이 천사들은 지방우주의 영적 교육 단체에게 훌륭한 보좌관이다. 교육 상담자는, **멜기세덱**과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부터, 아래로는 상승 생애의 단계에서 바로 뒤에 있는 동료에게 도우미로 배정된 모론시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선생에게 비서 역할을 한다. 너희는 **예루셈**을 둘러싼 일곱 맨션 세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가르치는 이 준{準} 교사 스라빔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의 수많은 교육{教育} 및 훈련 기관에서, 부서 우두머리의 동역자가 되며, 지역 체계의 일곱 훈련 세계, 그리고 성좌에 속한 70개 교육 구체의 교수진에 많은 숫자로 배속돼 있다. 이런 보살핌은 아래로 개별 세계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시간세계의 참되고 성별{聖別}된 선생들도, 최고 스라빔인 이 상담자들의 도움을 받고 종종 시중을 받는다.

네 번째로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증여한 것은, **네바돈**의 최고 스라빔 중에서 교육 상담자의 모습이었다.

5. **임무 지휘자**. 피조물이 거주하는 진화 및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근무하는 천사들이, 144명의 최고 스라빔 기관을 때때로 선출한다. 이것은 어떤 구체에서든지 가장 높은 천사 협의회이며, 스스로 정한 스랍 봉사 및 임무 국면들을 조화시킨다. 이 천사들은, 공무 집행 또는 경배에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스랍 집회를 주재한다.

6. **기록원**. 이들은 최고 스라빔을 위한 공식 기록원이다. 이 높은 천사들 가운데 다수는 충분히 발달된 은사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더러는 비교적 낮거나 책임이 가벼운 계층에 배속돼 있는 동안 부지런히 연구에 전념하고, 비슷한 임무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신임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

7. **무소속 사역자**. 최고 계층 가운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많은 숫자의 스라빔이,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그리고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스스로 정한 봉사자로서 존재한다. 그런 사역자들은 최고 스라빔의 봉사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며, 그렇게 이 계층의 일반 예비군을 구성한다.

2. 고위 스라빔

고위{高位} 스라빔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질적으로 다른 천사 계층을 능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우주의 상류 활동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 스랍 단체의

age.

39:1.13 (428.7) 4. *The Teaching Counselors*. These angels are the invaluable assistants of the spiritual teaching corps of the local universe. Teaching counselors are secretaries to all orders of teachers, from the Melchizedek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down to the morontia mortals who are assigned as helpers to those of their kind who are just behind them in the scale of ascendant life. You will first see these associate teaching seraphim on some one of the seven mansion worlds surrounding Jerusalem.

39:1.14 (428.8) These seraphim become associates of the division chiefs of the numerous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y are attached in large numbers to the faculties of the seven training worlds of the local systems and of the seventy educational spher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ministrations extend on down to the individual worlds. Even the true and consecrated teachers of time are assisted, and often attended, by these counselors of the supreme seraphim.

39:1.15 (429.1) The fourth creature bestowal of the Creator Son was in the likeness of a teaching counselor of the supreme seraphim of Nebadon.

39:1.16 (429.2) 5. *Directors of Assignment*. A body of 144 supreme seraphim is elected from time to time by the angels serving on the evolutionary and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of creature habitation. This is the highest angelic council on any sphere, and it co-ordinates the self-directed phases of seraphic service and assignment. These angels preside over all seraphic assemblies pertaining to the line of duty or the call to worship.

39:1.17 (429.3) 6. *The Recorders*. These are the official recorders for the supreme seraphim. Many of these high angels were born with their gifts fully developed; others have qualified for their positions of trust and responsibility by diligent application to study and faithful performance of similar duties while attached to lower or less responsible orders.

39:1.18 (429.4) 7. *Unattached Ministers*. Large numbers of unattached seraphim of the supreme order are self-directed servers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and on the inhabited planets. Such ministers voluntarily meet the differential of demand for the service of the supreme seraphim, thus constituting the general reserve of this order.

2. SUPERIOR SERAPHIM

39:2.1 (429.5) Superior seraphim receive their name, not because they are in any sense qualitatively superior to other orders of angels, but because they are in charge of the higher activities of a local universe. Very many of the first two groups of this

첫 두 집단 가운데 매우 많은 숫자는 달성 스라빔인데, 모든 훈련 국면에서 봉사했고 자신이 초기에 활동했던 구체들에서, 동료들에 대한 지휘자로서 어떤 영화롭게 된 임무를 받고 돌아온 천사들이다. 아직 젊은 우주이기 때문에, **네바돈**은 이 계층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 스라빔은 다음과 같이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정보 단체**. 이 스라빔은 **가브리엘**, 즉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 참모진에 소속된다. 그들은 **네바돈**의 협의회들에서 **가브리엘**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그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방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가브리엘이 으뜸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관장하는 강력한 무리의 정보 단체다. 이 스라빔은 체계 또는 성좌들과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으며,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연속되고 독립된 직통 회로를 따라서 **살빙톤**에 직접 전달된다.

다양한 지방우주들의 정보 단체들은 서로 연락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오직 주어진 한 연방우주 내부로 제한된다. 다양한 연방정부 사업과 처리사항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 한 연방우주는 대개 **낙원** 물자집배소의 규정과 설비를 통해서만 다른 연방우주와 연락할 수 있다.

2. **자비의 소리**. 자비는 스랍 봉사와 천사 사역의 중심사항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비를 표현하는 천사 단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에서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사역자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의 더 높은 자극과 더 거룩한 감정을 촉진하는, 영감받은 지도자다. 이 여러 군단의 지휘관들은, 지금은 반드시, 필사자의 운명을 수호하는 일 역시 마친 완료 스라빔이며; 다시 말하면, 각각의 천사 쌍은, 동물에서 기원되고 육신 속에서 사는 혼을 적어도 한 명 이상 안내했고, 그 후에 **스라빙톤**의 퀘도들을 지나갔으며, **완료 스랍 단체**에 소집됐다.

3. **영 조정자**. 고위 스라빔 중에서 셋째 집단은 **살빙톤**에 기반을 두지만, 지방우주에서 그들이 열매 맺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활동한다. 그들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반면, **살빙톤**에 있는 상승 체류자들이 지방우주에서 마지막으로--곧 가장 높은 모론시아 수준에서 새로 태어난 영 존재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제를 이 천사들이 맡고 있음을 설명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필사자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할 것이다. 생존하는 피조물로 하여금 모론시아 정신의 잠재력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신 계획자들이 맨션 세계에서 도와주듯이, 이 스라빔

seraphic corps are attainment seraphim, angels who have served in all phases of training and have returned to a glorified assignment as directors of their kind in the spheres of their earlier activities. Being a young universe, Nebadon does not have many of this order.

39:2.2 (429.6) The superior seraphim function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39:2.3 (429.7) 1. *The Intelligence Corps*. These seraphim belong to the personal staff of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y range the local universe gathering the information of the realms for his guidance in the councils of Nebadon. They are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mighty hosts over which Gabriel presides as vicegerent of the Master Son. These seraphim are not directly affiliated with either the systems or the constellations, and their information pours in direct to Salvington upon a continuous, direct, and independent circuit.

39:2.4 (429.8)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various local universes can and do intercommunicate but only within a given superuniverse. There is a differential of energy which effectively segregates the business and transactions of the various supergovernments. One superuniverse can ordinarily communicate with another superuniverse only through the provisions and facilities of the Paradise clearinghouse.

39:2.5 (430.1) 2. *The Voice of Mercy*. Mercy is the keynote of seraphic service and angelic ministry. It is therefore fitting that there should be a corps of angels who, in a special manner, portray mercy. These seraphim are the real mercy minister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the inspired leaders who foster the higher impulses and holier emotions of men and angels. The directors of these legions are now always completion seraphim who are also graduate guardians of mortal destiny; that is, each angelic pair has guided at least one soul of animal origin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nd has subsequently traversed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has been mustered into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2.6 (430.2) 3. *Spirit Co-ordinators*. The third group of superior seraphim are based on Salvington but function in the local universe anywhere they can be of fruitful service. While their tasks are essentially spiritual and therefore beyond the real understanding of human minds, you will perhaps grasp something of their ministry to mortals if it is explained that these angels are intrusted with the task of preparing the ascendant sojourners on Salvington for their last transition in the local universe — from the highest morontia level to the status of newborn spirit beings. As the mind planners on the mansion worlds help the surviving creature to adjust to, and make effective use of, the potentials of morontia mind, so do these

들은 **살빙톤**에서 영이 새로 성취한 정신 능력에 관해 모론시아 졸업생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상승한 필사자들을 기타 여러 방법으로 섬긴다.

4. **보조 교사**. 보조{補助} 교사들은 동료 스라빔, 즉 교육 상담자의 도우미이자 동역자다. 또한 그들은 지방우주의 광범한 교육 체제, 특히 지역 체계의 맨션 세계들에서 작동하는, 칠중{七重} 훈련 요강과 개별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계층의 스라빔으로 이뤄진 한 훌륭한 단체가, 진리와 정의라는 대의를 육성하고 촉진시킬 목적으로 **유란시아**에서 활동한다.

5. **운송자**. 모든 집단의 돌보는 영들은 자신의 운송 부대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스스로 여행할 수 없는 인격체들을 운송하는 사역이 맡겨진 천사 계층이다. 고위 스라빔 중에서 다섯째 집단은 **살빙톤**에 본부를 두며, 지방 우주 본부에서 오가는 공간 횡단자{橫斷者}로서 근무한다. 고위 스라빔의 다른 하위부서들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그렇게 창조된 반면, 나머지는 더 낮거나 자질을 적게 부여받은 집단으로부터 올라왔다.

스라빔의 “에너지 범위”는 지방우주뿐 아니라, 심지어 연방우주의 필요조건에도 전적으로 적합하지만, **우버사**로부터 **하보나**까지 가는 것 같은, 오랫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소모적인 그런 여행에는, 운송 재능을 가진 1차 제2스라빔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운송자들은 이동하는 동안 비행에 필요할 에너지를 채우고 가며, 여행이 끝나면 개인의 동력을 다시 채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살빙톤**에서도, 몸소 이동하는 형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상승자들은 **하보나** 내부 궤도에서 마지막으로 잠든 후에, 그리고 **낙원**에서 영원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갈 때 스랍 운송에 의존해야 한다. 그 후에는 너희가 우주에서 우주로 갈 때, 운송되기 위해 천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스라빔에게 둘러싸이는 과정은, 변환 수면{睡眠} 과정에 자동 시간 요소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죽는 체험 또는 잠자는 체험과 다를 바 없다. 스랍의 품속에서 쉬는 동안, 너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다. 그러나 **사고 조율사**는 전적으로 충분히 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네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이다.

스라빔에 둘러싸였을 때, 너희는 지정된 시간 동안 잠자게 되며, 정해진 순간에 깰 것이다. 운송 중에 잠을 잘 때, 여행하는 기간은 무의미하다. 너희는 지나가는 시간을 직접 인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어느 도시에서 차를 타고 잠든

seraphim instruct the morontia graduates on Salvington regarding the newly attained capacities of the mind of the spirit. And they serve the ascendant mortals in many other ways.

39:2.7 (430.3) 4. *Assistant Teachers*. The assistant teachers are the helpers and associates of their fellow seraphim, the teaching counselors. They are also individually connected with the extensive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local universe, especially with the sevenfold scheme of training operative on the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A marvelous corps of this order of seraphim functions on Urantia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nd furthering the cause of truth and righteousness.

39:2.8 (430.4) 5. *The Transporters*. All groups of ministering spirits have their transport corps, angelic orders dedicated to the ministry of transporting those personalities who are unable, of themselves, to journey from one sphere to another. The fifth group of the superior seraphim are headquartered on Salvington and serve as space traversers to an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Like other subdivisions of the superior seraphim, some were created as such while others have risen from the lower or less endowed groups.

39:2.9 (430.5) The “energy range” of seraphim is wholly adequate for local universe and even for superuniverse requirements, but they could never withstand the energy demands entailed by such a long journey as that from Uversa to Havona. Such an exhaustive journey requires the special powers of a primary seconaphim of transport endowments. Transporters take on energy for flight while in transit and recuperate personal power at the end of the journey.

39:2.10 (430.6) Even on Salvington ascending mortals do not possess personal transit forms. Ascenders must depend upon seraphic transport in advancing from world to world until after the last rest of sleep on the inner circle of Havona and the eternal awakening on Paradise. Subsequently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gels for transport from universe to universe.

39:2.11 (430.7) The process of being enseraphimed is not unlike the experience of death or sleep except that there is an automatic time element in the transit slumber. You are consciously unconscious during seraphic rest. But the Thought Adjuster is wholly and fully conscious, in fact, exceptionally efficient since you are unable to oppose, resist, or otherwise hinder creative and transforming work.

39:2.12 (431.1) When enseraphimed, you go to sleep for a specified time, and you will awake at the designated moment. The length of a journey when in transit sleep is immaterial. You are not directly aware of the passing of time. It is as if you went to

후에 온 밤을 편안한 잠 속에 쉬고 나서 다른 먼 도시에서 잠을 깬 것과 비슷하다. 너희는 잠자면서 여행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스라빔에 둘러싸여 공간을 통해서 날아가며, 그동안 너희는 쉬게--즉 잠자게-- 된다. **조울사**와 스랍 운반자가 협동함으로써, 이동하는 동안의 수면을 유도한다.

천사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타 버릴 수 있는 본체를--곧 살과 피를-- 운송할 수 없지만, 가장 낮은 모론시아 형태부터 더 높은 영 형태까지, 모든 다른 것을 운송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사하는 사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때, 네 육신은 이 행성에 남는다. 네 **사고 조울사**는 **아버지** 품속으로 나아가며, 그 후에 신원을 확인하는 맨션 세계에서 네 인격이 다시 조립될 때, 이 천사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네 몸은 거기서 모론시아 형태를 갖게 되는데, 스라빔에 둘러싸일 수 있는 형태다. 너는 무덤 속에 “필사자 육신을 심고”; 맨션 세계에서 “모론시아 형태를 거둔다”.

6. **기록원**. 이 인격체들은 **살빙톤** 및 거기에 관련된 세계들의 기록을 수납하고 서류정리를 하고 다시 발송하는 일에 특히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거주하는 연방우주 인격체 및 고등 인격체 집단을 위한 특별 기록원으로서, **살빙톤** 법정의 서기로서,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비서로서 근무한다.

방송요원은--곧 수신자(受信者)와 송신자는-- 스랍 기록원 중에서 특화된 하위기관인데, 기록 발송과 중요한 정보 보급에 관여한다. 그들의 업무는 높은 계층에 해당되며, 144,000개의 통신문이 동일한 에너지 계통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중(多重) 회로로 돼있다. 그들은 최고스라빔의 우두머리 기록원들의 고등(高等) 표의문자{表意文字} 기법에 익숙하며, 공통적인 이 상징들을 이용해서, 3차 최고스라빔의 정보 조정자, 그리고 **완로 스랍 단체**의 영화롭게 된 첩보 조정자들, 이 양자와 상호 접촉을 유지한다.

고위 계층의 스랍 기록원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 자체 계층의 정보 부대 및 모든 하위 기록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한편 방송체제는 그들로 하여금 연방우주의 고등 기록원들과,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하보나**의 기록원들 및 **낙원**에 있는 지식 관리인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고위 기록원 계층 가운데 다수는 지방우주의 낮은 구역에서 비슷한 임무로부터 승진된 스라빔이다.

7. **예비군**. 모든 유형의 고위 스라빔으로 이뤄진 많은 숫자의 예비군이 **살빙톤**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정(配定)하는 지휘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또는 우주 경영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네바돈**의 가

sleep on a transport vehicle in one city and, after resting in peaceful slumber all night, awakened in another and distant metropolis. You journeyed while you slumbered. And so you take flight through space, enseraphimed, while you rest — sleep. The transit sleep is induced by the liaison between the Adjusters and the seraphic transporters.

39:2.13 (431.2) The angels cannot transport combustion bodies — flesh and blood — such as you now have, but they can transport all others, from the lowest morontia to the higher spirit forms. They do not function in the event of natural death. When you finish your earthly career, your body remains on this planet. Your Thought Adjuster proceeds to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se angels are not directly concerned in your subsequent personality reassembly on the identification mansion world. There your new body is a morontia form, one that can enseraphim. You “sow a mortal body” in the grave; you “reap a morontia form” on the mansion worlds.

39:2.14 (431.3) 6. *The Recorders*. These personalities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reception, filing, and redispach of the records of Salvington and its associated worlds. They also serve as special recorders for resident groups of superuniverse and higher personalities and as clerks of the courts of Salvington and secretaries to the rulers thereof.

39:2.15 (431.4) *Broadcasters* — receivers and dispatchers — are a specialized subdivision of the seraphic recorders, being concerned with the dispatch of records and with the dissemination of essential information. Their work is of a high order, being so multicircuited that 144,000 messages can simultaneously traverse the same lines of energy. They adapt the higher ideographic techniques of the superaphic chief recorders and with these common symbols maintain reciprocal contact with both the intelligence co-ordinato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and the glorified intelligence co-ordinato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2.16 (431.5) Seraphic recorders of the superior order thus effect a close liaison with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ir own order and with all subordinate recorders, while the broadcasts enable them to mainta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higher recorders of the superuniverse and, through this channel, with the recorders of Havona and the custodians of knowledge on Paradise. Many of the superior order of recorders are seraphim ascended from similar duties in lower sections of the universe.

39:2.17 (431.6) 7. *The Reserves*. Large reserves of all types of the superior seraphim are held on Salvington, instantly available for dispatch to the farthestmost worlds of Nebadon as they are

장 먼 세계들까지 즉시 파송될 수 있다. 고위 스라빔의 예비군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연락원 조력자들을 또한 제공하는데, 그 우두머리는 모든 개인 통신을 관리하고 발송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지방우주는 상호 통신에 적당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 연락원들의 파송을 필요로 하는 남아있는 통신문이 항상 있다.

전체 지방우주의 기본 예비군은 **살빙톤**의 스라빔 세계에 주둔한다. 이 단체는 모든 유형의 모든 천사 집단을 포함한다.

3. 감독관 스라빔

융통성 있는 이 계층의 우주 천사들은 전적으로 성과를 돌보는 데 배정돼 있다. 유능한 이 사역자들은 자신의 본부를 성과 수도에 두지만, 자신이 배정된 영역의 권익을 위해 **네바돈** 전역에서 활동한다.

1. **감독하는 보좌관**. 감독하는 스라빔 중에서 첫 계층은 **성좌 아버지**들의 집단 업무에 배정되며, **지고자**들에게 항상 효과적인 도우미다. 이 스라빔은 전체 성과의 통합과 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여한다.

2. **법 예측자**. 응보의 지적{知的} 기초는 법이며, 지방우주에서 법은 성과들의 입법{立法} 집회에서 생겨난다. 이 심의 기관들은 **네바돈**의 기본 법을 성문화{成文化}하고 정식으로 공포하는데, 그 법은 인격있는 피조물의 도덕적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고정된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전체 성과에서 최고로 가능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고안됐다. 발의된 어떤 법규든지, 그것이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예측을, 성과 법 제정가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둘째 계층의 의무다. 그들은 지역 체계와 인간거주 세계에서 오랫동안 체험을 쌓은 덕분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스라빔은 어떤 한 집단에 특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발언하려고, 천상의 법률 제정가들 앞에 출두한다. 심지어 필사적 사람도 우주 법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스라빔이, 반드시 사람의 일시적이고 의식하는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속 사람, 즉 공간 세계들에 있는 물질 필사자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참되게 열망하는 것을, 신실하고 충분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3. **사회 설계자**. 이 스라빔은, 개별 행성으로부터 모론시아 혼련 세계들 전반에 이르기까지,

requisitioned by the directors of assignment or upon the request of the universe administrators. The reserves of superior seraphim also furnish messenger aids upon requisition by the chief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ho is intrusted with the custody and dispatch of all personal communications. A local universe is fully provided with adequate means of intercommunication, but there is always a residue of messages which requires dispatch by personal messengers.

39:2.18 (432.1) The basic reserves for the entire local universe are held on the seraphic worlds of Salvington. This corps includes all types of all groups of angels.

3. SUPERVISOR SERAPHIM

39:3.1 (432.2) This versatile order of universe angels is assigned to the exclusive service of the constellations. These able ministers make their headquarter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but function throughout all Nebadon in the interests of their assigned realms.

39:3.2 (432.3) 1. *Supervising Assistants*. The first order of the supervising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collective work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they are the ever-efficient helpers of the Most Highs. These seraphim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39:3.3 (432.4) 2. *Law Forecasters*.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justice is law, and in a local universe law originates in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deliberative bodies codify and formally promulgate the basic laws of Nebadon, laws designed to afford the greatest possible co-ordin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consistent with the fixed policy of noninfringement of the moral free will of personal creatures. It is the duty of the second order of supervisor seraphim to place before the constellation lawmakers a forecast of how any proposed enactment would affect the lives of freewill creatures. This service they are well qualified to perform by virtue of long experience in the local systems and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seraphim seek no special favors for one group or another, but they do appear before the celestial lawmakers to speak for those who cannot be present to speak for themselves. Even mortal man may contribute to the evolution of universe law, for these very seraphim do faithfully and fully portray, not necessarily man's transient and conscious desires, but rather the true longings of the inner man, the evolving morontia soul of the material mortal on the worlds of space.

39:3.4 (432.5) 3. *Social Architects*. From the individual planets up through the morontia training

진지한 모든 사회적 접촉을 향상시키고, 우주에 있는 피조물의 사회적 진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이들은 지성 존재들의 관계에서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한편, 참된 자아 이해와 진정한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상호연함을 촉진시키기 위해 애쓰는 천사다.

사회 설계자들은, 이 땅에서 일하는 효율적이고 적당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체들을 함께 묶기 위해서, 자신의 범위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런 집단이 맨션 세계들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봉사를 계속하도록 자신들이 다시 연관됨을 발견해 왔다. 그러나 이 스라빔이 자신의 목적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과제를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을 항상 결합시킬 수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이런 조건 아래서 가능한 최고의 물질을 활용해야 한다.

이 천사들은 맨션 세계에서, 그리고 더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생기는 진보와 상관 있는, 그리고 셋 또는 그 이상의 인격자와 관련하는, 어떤 이행업무든지 관여한다. 두 존재는 짝짓거나, 보완적이거나, 또는 동업관계의 원칙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이 봉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할 때, 그들은 한 사회 문제를 구성하며, 따라서 사회 설계자들의 관할권으로 들어간다. 이 유능한 스라빔은 **에덴시아**에서 70개의 부서로 조직되며, 이 부서들은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모론시아 진보 세계에서 사역한다.

4. 윤리적 민감성 향상자. 인격자들이 맺는 관계의 도덕성을 피조물이 더 잘 인식하도록 육성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이 스라빔들의 사명인데, 그런 일이 인간이나 초인간의 사회 및 정부의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성장의 근원인 동시에 비결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이 스라빔들은, 행성 통치자들에 대한 자발적 조언자로서, 그리고 체계 훈련 세계들에서 교환 교수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활동한다. 아무튼,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형제관계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벽한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노라티아덱** 수도{首都}의 70개 위성, 즉 **에덴시아**의 여러 사회 실험실에서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때에야 실제 체험을 겪음으로써, 너희가 진정으로 탐구하게 될 형제애에 대한 바로 그 진리를, 너희가 빨리 인식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5. 운송자.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다섯째 집단은, 인격체 운송자, 즉 성좌 본부에서 오가는 존재들을 운반한다. 그런 운송 스라빔은,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날아가는 동안, 자신의 속도, 방향, 및 천문학상 위치를 충분히 의식한다. 그들은 생명 없는 발사체처럼 공간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공간을 날아가는 동안 조금도 충돌할 위험 없

worlds, these seraphim labor to enhance all sincere social contacts and to further the social evolution of universe creatures. These are the angels who seek to divest the associations of intelligent beings of all artificiality while endeavoring to facilitate the interassociation of will creatures on a basis of real self-understanding and genuine mutual appreciation.

39:3.5 (432.6) Social architects do everything within their province and power to bring together suitable individuals that they may constitute efficient and agreeable working groups on earth; and sometimes such groups have found themselves reassociated on the mansion worlds for continued fruitful service. But not always do these seraphim attain their ends; not always are they able to bring together those who would form the most ideal group to achieve a given purpose or to accomplish a certain task; under these conditions they must utilize the best of the material available.

39:3.6 (432.7) These angels continue their ministry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They are concerned with any undertaking having to do with progress on the morontia worlds and which concerns three or more persons. Two beings are regarded as operating on the mating, complementary, or partnership basis, but when three or more are grouped for service, they constitute a social problem and therefore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ocial architects. These efficient seraphim are organized in seventy divisions on Edentia, and these divisions minister on the seventy morontia progress worlds encircling the headquarters sphere.

39:3.7 (433.1) **4. Ethical Sensitizers.** It is the mission of these seraphim to foster and to promote the growth of creature appreciation of the mor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such is the seed and secret of the continued and purposeful growth of society and government, human or superhuman. These enhancers of ethical appreciation function anywhere and everywhere they may be of service, as volunteer counselors to the planetary rulers and as exchange teachers on the system training worlds. You will not, however, come under their full guidance until you reach the brotherhood schools on Edentia, where they will quicken your appreciation of those very truths of fraternity which you will even then be so earnestly exploring by the actual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univita in the social laboratories of Edentia, the seventy satellites of the Norlatiadek capital.

39:3.8 (433.2) **5. The Transporters.** The fifth group of supervisor seraphim operate as personality transporters, carrying beings to an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Such transport seraphim, while in flight from one sphere to another, are fully conscious of their velocity, direction, and astronomic whereabouts. They are

이 서로 근접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들은 진행 속도를 수정하고 비행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며, 상관들이 지시한다면, 우주 정보 회로의 어떤 공간 교차로에서든지 목적지를 변경 할 수도 있다.

이 운반 인격체들은, 보편적으로 분포된 체계의 에너지 계통 전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각 에너지 계통은 초당 186,280마일의 정확한 공간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운송자들은 긴 시간 여행할 때, 너희 시간으로 대략 초당 555,000마일에서 거의 559,000마일에 이르기까지 변하는 평균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동력 속도에 에너지 속도를 이중으로 첨가시킬 수 있다. 그 속도는 근처에 있는 물질의 질량, 근접성,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주 동력의 주요 회로들의 세력과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우주를 지나갈 수 있고, 적당하게 준비된 다른 존재들을 운송할 수도 있는, 스라빔과 비슷한 수많은 유형의 존재가 있다.

6. 기록원 감독하는 스라빔 중에서 여섯째 계층은, 성좌 직무의 특별 기록원으로서 활동한다.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단체가, 너희 체계와 행성이 속해 있는 **노라티아덱** 성좌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7. 예비군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일반 예비군이 성좌 본부에 주둔한다. 그런 천사 예비군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놀고 있지 않으며; 많은 숫자가 성좌 통치자들에게 연락하는 보조원으로서 근무하며; 더러는 배정되지 않는 **보론다덱**들의 **살빙톤** 예비군에 배속돼 있으며; 더러는 **유란시아의 보론다덱** 참관인, 그리고 가끔 **유란시아의 지고자 섭정**{攝政}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론다덱** 아들들에게 배속될 수 있다.

4. 경영자 스라빔

스라빔 중에서 넷째 계층은, 지역 체계의 경영 임무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태어나지만, 많은 숫자가 맨션 및 모론시아 구체에, 그리고 인간거주 세계에 주둔한다. 넷째 계층의 스라빔은 비범한 경영 역량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의 우주 정부에 있는 비교적 낮은 부서 지휘자들에게 유능한 보좌관이며, 지역 체계 및 이를 구성하는 세계들의 직무에 주로 관여한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직돼 있다:

1. 경영 보조원 이 유능한 스라빔은, **체계 주권자**, 즉 1차 **라노난덱 아들**의 측근 보좌관이다.

not traversing space as would an inanimate projectile. They may pass near one another during space flight without the least danger of collision. They are fully able to vary speed of progression and to alter direction of flight, even to change destinations if their directors should so instruct them at any space junction of the universe intelligence circuits.

39:3.9 (433.3) These transit personalities are so organized that they can simultaneously utilize all three of the universally distributed lines of energy, each having a clear space velocity of 186,280 miles per second. These transporters are thus able to superimpose velocity of energy upon velocity of power until they attain an average speed on their long journeys varying anywhere from 555,000 to almost 559,000 of your miles per second of your time. The velocity is affected by the mass and proximity of neighboring matter and by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 near-by main circuits of universe power. There are numerous types of beings, similar to the seraphim, who are able to traverse space, and who also are able to transport other beings who have been properly prepared.

39:3.10 (433.4) 6. *The Recorders.* The sixth order of supervising seraphim act as the special recorders of constellation affairs. A large and efficient corps functions on Edentia,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to which your system and planet belong.

39:3.11 (433.5) 7. *The Reserves.* General reserves of the supervisor seraphim are held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Such angelic reservists are in no sense inactive; many serve as messenger aids to the constellation rulers; others are attached to the Salvington reserves of unassigned Vorondadeks; still others may be attached to Vorondadek Sons on special assignment, such as the Vorondadek observer, and sometimes Most High regent, of Urantia.

4. ADMINISTRATOR SERAPHIM

39:4.1 (434.1) The fourth order of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the local systems. They are indigenous to the system capitals but are stationed in large numbers on the mansion and morontia spheres and on the inhabited worlds. Fourth-order seraphim are by nature endowed with unusual administrative ability. They are the able assistants of the directors of the lower divisions of the universe government of a Creator Son and are mainly occupied with the affairs of the local systems and their component worlds. They are organized for service as follows:

39:4.2 (434.2) 1. *Administrative Assistants.* These able seraphim are the immediate assistants of a

그들은 체계 본부의 복잡하게 얽힌 행정 업무 내용을 집행하는 일에 매우 귀중한 조력자다. 또한 그들은 체계 통치자들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근무하는데, 다양한 변형 세계와 인간거주 행성들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체계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인간거주 세계들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유익을 위해서 많은 위탁임무를 실행한다.

바로 이 스랍 경영자들은, 세계 통치자인 **행성 왕자** 정부에도 또한 배속돼 있다. 일정한 우주에 있는 행성 대부분은 2차 **라노난덱 아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유란시아** 같은 어떤 세계들에서는 신성한 계획이 훼손돼 왔다. **행성 왕자**가 변절(變節)하는 경우에, 이 스라빔은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 그리고 행성 권한을 계승하는 자들에게 배속된다.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통치자는 이런 다양한 스라빔 계층에 속하는, 1,000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다.

2. **응보(應報) 안내자**. 이들은 사람과 천사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체계 또는 행성의 법정에 판결을 받으러 나아올 때, 그에 관한 요약된 증거물을 제시하는 천사다. 그들은 필사자의 생존에 관계되는 모든 예비 청문회를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 진술서는 그런 소송사태에 관한 기록과 함께,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높은 법정으로 나중에 넘겨진다. 이 스라빔들은, 생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런 모든 소송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준비되는데, 그들은 우주의 응보를 다루는 경영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모든 항목마다 모든 특색을 낱낱이 완전하게 이해한다.

응보를 무효화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의 사명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정확한 응보가 아주 자비롭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이 스라빔은 종종 지역 세계들에서 활동하는데, 화해시키는 위원회의--곧 사소한 오해를 다루는 법정의-- 3인조 심판관 앞으로 대개 출두한다. 낮은 영역에서 한 때 응보 안내자로서 수고했던 많은 존재가, 높은 구체들에서, 그리고 **살빙톤**에서 **자비의 소리**로서 나중에 나타난다.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매우 적은 숫자의 응보 안내자만 잃었지만, 다른 행정관 스라빔, 그리고 낮은 계층의 스랍 사역자 중에서 4분의 1이,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궤변에 잘못 이끌리고 현혹됐다.

3. **시공우주 시민권 해설자**.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맨션 세계 훈련, 즉 우주 생애에서 처음으로 학생 도제(徒弟) 신분을 완수했을 때, 그들은 상대적 성숙이 주는 일시적 만족을--곧 체계 수도의 시민권을-- 누리도록 허락 받는다. 각 상승 목표 달

System Sovereign, a primary Lanonandek Son. They are invaluable aids in the execution of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executive work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ey also serve as the personal agents of the system rulers, journeying back and forth in large numbers to the various transition worlds and to the inhabited planets, executing many commissions for the welfare of the system and in the physical and biologic interests of its inhabited worlds.

39:4.3 (434.3) These same seraphic administrators are also attached to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rulers, the Planetary Princes. The majority of planets in a given universe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econdary Lanonandek Son, but on certain worlds, such as Urantia,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In the event of the defection of a Planetary Prince, these seraphim become attached to the Melchizedek receivers and their successors in planetary authority. The present acting ruler of Urantia is assisted by a corps of one thousand of this versatile order of seraphim.

39:4.4 (434.4) 2. *Justice Guides*. These are the angels who present the summary of evidence concerning the eternal welfare of men and angels when such matters come up for adjudication in the tribunals of a system or a planet. They prepare the statements for all preliminary hearings involving mortal survival, statements which are subsequently carried with the records of such cases to the higher tribunals of the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The defense of all cases of doubtful survival is prepared by these seraphim, who have a perfect understanding of all the details of every feature of every count in the indictments drawn by the administrators of universe justice.

39:4.5 (434.5) It is not the mission of these angels to defeat or to delay justice but rather to insure that unerring justice is dealt out with generous mercy in fairness to all creatures. These seraphim often function on the local worlds, commonly appearing before the referee trios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 the courts for minor misunderstandings. Many who at one time served as justice guides in the lower realms later appear as Voices of Mercy in the higher spheres and on Salvington.

39:4.6 (434.6) In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very few of the justice guides were lost, but more than one quarter of the other administrator seraphim and of the lower orders of seraphic ministers were misled and deluded by the sophistries of unbridled personal liberty.

39:4.7 (434.7) 3. *Interpreters of Cosmic Citizenship*. When ascending mortals have completed the mansion world training, the first student apprenticeship in the universe career, they are permitted to enjoy the transient satisfactions of

성이 실제로 성취되지만, 더 높은 의미에서, 그런 목표들은 단순히 **낙원**으로 향하는 긴 상승 경로에 있는 이정표{里程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아무리 상대적일지라도, 진화하는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일시적이긴 하지만 목표 달성의 충분한 만족감을 맛보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 **낙원** 상승에서 일시적 중단, 즉 짧게 숨을 돌리키는 기간이 때때로 있는데, 그 동안에는 우주 시야{視野}가 멈추고, 피조물 신분이 고정되며, 그 인격체는 목적을 성취했다는 달콤함을 맛본다.

필사 상승자의 생애에서 그런 첫 기간은 지역 체계 수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한숨 돌리는 기간에, 너는 **예루셈**의 한 시민으로서 --**유란시아**와 일곱 맨션 세계를 포함하는-- 여덟 번의 이전{以前} 생애 체험을 겪는 동안 네가 획득한 것들을, 피조물 생활에서 표현하려고 애쓸 것이다.

시공우주 시민권을 해설하는 스랍들이, 체계 수도의 새로운 시민을 안내하고, 우주 정부의 의무를 빨리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이 스랍들은 또한 체계 행정부에 있는 **물질 아들**과 가깝게 연합해 있으며, 한편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물질적 필사자에게 시공우주 시민권의 책임과 도덕성을 설명한다.

4. 도덕성 촉진자. 너는 맨션 세계들에서, 관련된 모든 유익을 위해 자치{自治}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너의 정신은 협동을 배우는데, 다른 존재 및 더 현명한 존재들과 어떻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가를 배운다. 스랍 선생들은, 체계 본부에서 시공우주 도덕성을--곧 자유와 충성의 상호작용을-- 네가 인식하도록 더욱 자극시킬 것이다.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은 우주 형제관계를 영리하게 인식함으로 얻는 열매이며; 아무 것도 내주지 않고 많이 획득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인격체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서, 네가 처음에는 충성하기를 배우고, 다음에는 사랑하기를 배우며, 다음에는 자식의 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될 수도 있지만; 네가 완결성취자가 되기 전에는, 완전한 충성심을 달성하기까지, 최종의 자유를 스스로 실현할 수 없다.

이 스랍들은, 인내{忍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침체는 확실히 죽음으로 이끌지만, 과도하게 빠른 성장 역시 자멸한다는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줄곧 흘러가며 연달아 조금씩 내려가서 계속 흐르듯이, 모론시아 및 영 세계들에서는 언제든지 위로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런 점진적 단계들을 거쳐서-- 진보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도덕성 촉진자들은, 필사자 생애를 인간거주 세계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고리로 이뤄진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사슬을 예로 든다. **유란시아**에, 즉 필사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이 구체에 머무는

relative maturity — citizenship on the system capital. While the attainment of each ascendant goal is a factual achievement, in the larger sense such goals are simply milestones on the long ascending path to Paradise. But however relative such successes may be, no evolutionary creature is ever denied the full though transient satisfaction of goal attainment. Ever and anon there is a pause in the Paradise ascent, a short breathing spell, during which universe horizons stand still, creature status is stationary, and the personality tastes the sweetness of goal fulfillment.

39:4.8 (435.1) The first of such periods in the career of a mortal ascender occurs on the capital of a local system. During this pause you will, as a citizen of Jerusem, attempt to express in creature life those things which you have acquired during the eight preceding life experiences — embracing Urantia and the seven mansion worlds.

39:4.9 (435.2) The seraphic interpreters of cosmic citizenship guide the new citizens of the system capitals and quicken their appreci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universe government. These seraphim are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Sons in the system administration, while they portray the responsibility and morality of cosmic citizenship to the material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39:4.10 (435.3) **4. Quickeners of Morality.** On the mansion worlds you begin to learn self-government for the benefit of all concerned. Your mind learns co-operation, learns how to plan with other and wiser beings. On the system headquarters the seraphic teachers will further quicken your appreciation of cosmic morality — of the interactions of liberty and loyalty.

39:4.11 (435.4) What is loyalty? It is the fruit of an intelligent appreciation of universe brotherhood; one could not take so much and give nothing. As you ascend the personality scale, first you learn to be loyal, then to love, then to be filial, and then may you be free; but not until you are a finaliter, not until you have attained perfection of loyalty, can you self-realize finality of liberty.

39:4.12 (435.5) These seraphim teach the fruitfulness of patience: That stagnation is certain death, but that overrapid growth is equally suicidal; that as a drop of water from a higher level falls to a lower and, flowing onward, passes ever downward through a succession of short falls, so ever upward is progress in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 and just as slowly and by just such gradual stages.

39:4.13 (435.6) To the inhabited worlds the quickeners of morality portray mortal life as an unbroken chain of many links. Your short sojourn on Urantia, on this sphere of mortal infancy, is only a single link,

너의 인생은 하나의 고리에 불과한데, 그것은 우주들을 가로질러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긴 사슬 가운데 첫 사슬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첫 생애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 생애를 사는 체험이다. 이 세계에서 하는 일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네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 방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의로운 삶에 대한 물질 보상은 없지만, 깊은 만족감이--곧 성취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보상도 초월한다.

하늘 나라의 열쇠는: 성실함, 더 성실함, 그리고 더욱 성실함이다. 누구나 이 열쇠를 갖고 있다. 사람은 결단하고, 더 많이 결단하고, 또 더 많이 결단함으로써 이 열쇠를 활용한다--즉 영 신분이 향상된다. 가장 도덕적인 선택은, 가능한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며, 항상--곧 어느 구체에서나, 모든 구체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면, 비록 **예루셈**에서 가장 낮은 시민이라도, 심지어 **유란시아**의 필사자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일지라도, 그는 위대하다.

5. **운송자**. 이들은 지역 체계에서 활동하는 운송 스라빔이다. 너희의 체계인 **사타니아**에서, 그들은 **예루셈**에서 오가는 승객을 실어 나르며, 그 외에 행성들 사이의 운송자로서 근무한다. **사타니아**의 한 운송 스라빔이 어떤 학생 방문자나, 영, 또는 준영{準靈} 본성의 다른 여행자를 **유란시아** 경계선에 두기까지, 하루가 지나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이 우주 횡단자들은 언젠가 체계 본부 집단의 다양한 세계를 오가며 너희를 운반할 것이고, 너희가 **예루셈** 임무를 마치게 되면, 그들이 **에덴시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이 기원된 세계 쪽으로 너희를 거꾸로 운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사자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실존하는 섭리시대 동안,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만일 그 후의 섭리시대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는 우주 본부 집단의 운송 스라빔의 호송을 받을 것이다.

6. **기록원**. 이 스라빔은 지역 체계의 삼중 기록 보관자다. 체계 수도에 있는 기록 성전{聖殿}은, 3분의 1은 물질적인데, 빛나는 금속과 수정체로 지어졌으며; 3분의 1은 모론시아인데, 영적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의 결합으로 꾸며져 있지만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3분의 1은 영적이다. 이 계층의 기록원들은 이런 삼중 기록 체계를 관장하고 유지한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처음에는 물질 기록 보관소를 참고하게 될 것인데, **물질 아들**들과 비교적 높은 과도기 존재들은 모론시아 회관에 있는 기록 보관소를 참고하는 한편, 그 영역의 스라빔 및 비교적 높은 인격체들은 영 구역의 기록을 숙독한다.

7. **예비군**. **예루셈**에서 이 예비군 단체의 경역자 스라빔은, 영 동무로서, 체계의 다양한 세계로부터 새로 도착한 상승하는 필사자들과--곧 맨선

the very first in the long chain that is to stretch across universes and through the eternal ages. It is not so much what you learn in this first life; it is the experience of living this life that is important. Even the *work* of this world, paramount though it is, is not nearly so important as the way in which you do this work. There is no material reward for righteous living, but there is profound satisfaction — consciousness of achievement — and this transcends any conceivable material reward.

39:4.14 (435.7)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sincerity, more sincerity, and more sincerity. All men have these keys. Men use them — advance in spirit status — by decisions, by more decisions, and by more decisions. The highest moral choice is the choice of the highest possible value, and always — in any sphere, in all of them — this is to choose to do the will of God. If man thus chooses, he *is* great, though he be the humblest citizen of Jerusalem or even the least of mortals on Urantia.

39:4.15 (436.1) 5. *The Transporters*. These are the transport seraphim who function in the local systems. In Satania, your system, they carry passengers back and forth from Jerusalem and otherwise serve as interplanetary transporters. Seldom does a day pass in which a transport seraphim of Satania does not deposit some student visitor or some other traveler of spirit or semispirit nature on the shores of Urantia. These very space traversers will sometime carry you to and from the various worlds of the system headquarters group, and when you have finished the Jerusalem assignment, they will carry you forward to Edentia. Bu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they carry you backward to the world of human origin. A mortal never returns to his native planet during the dispensation of his temporal existence, and if he should return during a subsequent dispensation, he would be escorted by a transport seraphim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group.

39:4.16 (436.2) 6. *The Recorders*. These seraphim are the keepers of the threefold records of the local systems. The temple of records on a system capital is a unique structure, one third material, constructed of luminous metals and crystals; one third morontial, fabricated of the liaison of spiritual and material energy but beyond the range of mortal vision; and one third spiritual. The recorders of this order preside over and maintain this threefold system of records. Ascending mortals will at first consult the material archives, Material Sons and the higher transition beings consult those of the morontia halls, while seraphim and the higher spirit personalities of the realm peruse the records of the spirit section.

39:4.17 (436.3) 7. *The Reserves*. The reserve corps of administrator seraphim on Jerusalem spend much of their waiting time in visiting, as spirit

세계들에서 공인된 졸업생과-- 교제하려고,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 너희가 **예루셈**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많이 여행하고 많이 체험한, 기다리는 예비 단체의 이 스라빔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일일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체계 수도를 그토록 사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다운 관계다. 너희는 **물질 아들**, 천사, 및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뒤섞이는 것을 **예루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 약간영적인 존재, 그리고 물질 실존에서 방금 떠오른 개인들이 여기서 친하게 사귈다. 필사자 형체가 여기서 매우 변경되고 인간의 광선 반응 범위가 매우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서로 인식하고 호의적으로 인격을 이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5. 행성 도우미

이 스라빔은 체계 수도에 본부를 유지하며, **아담** 같은 상주(常住)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행성 아담**의 봉사, 즉 진화 세계들에 있는 물질 인종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천사의 보살피는 업무는, 그 업무가 인간거주 세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즉 영원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세계의 남녀가 당면하는 실제 문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더 흥미롭게 된다.

유란시아에서는 **아담**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서 대다수의 행성 도우미가 제거됐으며, 너희 세계에 대한 스랍의 감독권은, 경영자, 과도기 사역자, 및 운명 수호자들에게 더 많이 이양됐다. 그러나 너희의 태만한 **물질 아들**들을 돕던 이 스랍 조력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서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1. **동산의 소리**. 인간 진화의 행성 과정이 최고도의 생물학적 수준을 성취했을 때, **물질 아들**과 **딸**, 즉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뛰어난 생명 원형질을 실제로 수여함으로써, 인종들의 증진된 진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출현한다. 그런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본부는 대개 **에덴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며, 그들의 개인 스라빔은 종종 “**동산의 소리**”로 알려진다. 이 스라빔은 진화하는 인종들의 육체적 및 지적 증진을 위해 기획하면서, 항상 **행성 아담**에게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한다.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직무에 태만한 후에, 이 스라빔들 가운데 일부가 행성에 남았고, **아담**의 권한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에게 배정됐다.

2. **형제관계의 영**. **아담**과 **이브**가 진화 세계에 도착했을 때, 그 다양한 인종 사이에서 인종 화합

companions, with the newly arrived ascending mortals from the various worlds of the system — the accredited graduates of the mansion worlds. One of the delights of your sojourn on Jerusalem will be to talk and visit, during recess periods, with these much-traveled and many-experienced seraphim of the waiting reserve corps.

39:4.18 (436.4) It is just such friendly relationships as these that so endear a system capital to the ascending mortals. On Jerusalem you will find the first intermingling of Material Sons, angels, and ascending pilgrims. Here fraternize beings who are wholly spiritual and semispiritual and individuals just emerging from material existence. Mortal forms are there so modified and human ranges of light reaction so extended that all are able to enjoy mutual recognition and sympathetic personality understanding.

5. PLANETARY HELPERS

39:5.1 (436.5) These seraphim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system capitals and, though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esident Adamic citizens, are primari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Planetary Adams, the biologic or physical uplifters of the material rac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 ministering work of angels becomes of increasing interest as it nears the inhabited worlds, as it nears the actual problems faced by the men and women of time who are preparing themselves for the attempt to attain the goal of eternity.

39:5.2 (437.1) On Urantia the majority of the planetary helpers were removed upon the collapse of the Adamic regime, and the seraphic supervision of your world devolved to a greater extent upon the administrators, the transition ministers, and the guardians of destiny. But these seraphic aids of your defaulting Material Sons still serve Urantia in the following groups:

39:5.3 (437.2) 1. *The Voices of the Garden*. When the planetary course of human evolution is attaining its highest biologic level, there always appear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he Adams and Eves, to augment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races by an actual contribution of their superior life plasm. The planetary headquarters of such an Adam and Eve is usually denominated the Garden of Eden, and their personal seraphim are often known as the “voices of the Garden.” These seraphim are of invaluable service to the Planetary Adams in all their projects for the physical and intellectual upstepping of the evolutionary races. After the Adamic default on Urantia, some of these seraphim were left on the planet and were assigned to Adam’s successors in authority.

39:5.4 (437.3) 2. *The Spirits of Brotherhood*. It should be apparent that, when an Adam and Eve arrive on

과 사회 협동을 성취하는 과제가,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색깔이 다르고 본성이 다양한 이 인종들은, 모든 인간을 형제관계로 만들려는 계획에 좀처럼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다. 원시적인 이 사람들은, 성숙된 인간 체험의 결과로, 그리고 스라빔들 가운데 형제관계의 영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만, 평화롭게 상호연합하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스라빔의 수고가 없다면, 진화하는 세계의 인종을 조화시키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물질 아들**들의 노력이 크게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담**이 **유란시아** 진보를 위한 원래의 계획에 충실했다면, 이 형제관계의 영들이, 인간 종족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지금까지 일으켰을 것이다. **아담**의 태만을 고려할 때, 너희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의 형제관계를, 이 스라빔 계층이 촉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3. **평화의 혼**. 진화하는 사람들이 향상되고자 애쓴 초기의 수천 년 기간은 많은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 평화는 물질 영역의 자연스런 상태가 아니다. 세계들은, 평화의 혼 스라빔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친선”을 처음 깨닫는다.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에서 초기에 수고하는 동안 크게 방해 받았지만, **아담** 시대에 평화의 혼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보나**가 **유란시아**에 남았고, 지금은 거주하는 총독의 참모진에 배속돼 있다. 그리고 **미가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이 **베보나**가 천사 무리의 지도자로서, “**하보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는 친선”을 온 세계에 알렸다.

행성의 진화가 더 증진되는 시기가 되면, 이 스라빔은, 필자가 생존하는 원리로서, 신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속죄 관념을 갈아치우기에 유용할 것이다.

4. **신뢰의 영**. 의심은 원시인의 내재적 반응이며; 초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투쟁 때문에, 신뢰감은 자연히 생겨나지 못했다. 신뢰는, **아담** 체제의 이 행성 스라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롭게 습득한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 속으로 신뢰를 주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하나님**들은 매우 신뢰할만 하며, **만유의 아버지**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합하라고, 자신을--곧 **조울사**를-- 기꺼이 맡기신다.

이 스라빔 집단 전체가, **아담**의 실책 이후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했으며, 그 후로 **유란시아**에서 계속 수고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닌데, 신용과 신뢰라는 그들의 이상{理想}을 상당히 구현하는 문명이 현재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진보된 행성 시대가 되면, 이 스라빔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만족스런 연속성을 얻는 비결이

an evolutionary world, the task of achieving racial harmony and social co-operation among its diverse races is one of considerable proportions. Seldom do these races of different colors and varied natures take kindly to the plan of human brotherhood. These primitive men only come to realize the wisdom of peaceful interassociation as a result of ripened human experience and through the faithful ministry of the seraphic spirits of brotherhood. Without the work of these seraphim the efforts of the Material Sons to harmonize and advance the races of an evolving world would be greatly delayed. And had your Adam adhered to the original plan for the advancement of Urantia, by this time these spirits of brotherhood would have worked unbelievable transformations in the human race. In view of the Adamic default, it is indeed remarkable that these seraphic orders have been able to foster and bring to realization even as much of brotherhood as you now have on Urantia.

39:5.5 (437.4) 3. *The Souls of Peace*. The early millenniums of the upward strivings of evolutionary men are marked by many a struggle. Peace is not the natural state of the material realms. The worlds first realiz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eraphic souls of peace. Although these angels were largely thwarted in their early efforts on Urantia, Vevona, chief of the souls of peace in Adam’s day, was left on Urantia and is now attached to the staff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nd it was this same Vevona who, when Michael was born, heralded to the worlds, as the leader of the angelic host, “Glory to God in Havona and on earth peace and good will among men.”

39:5.6 (437.5) In the more advanced epochs of planetary evolution these seraphim are instrumental in supplanting the atonement idea by the concept of divine attunement as a philosophy of mortal survival.

39:5.7 (437.6) 4. *The Spirits of Trust*. Suspicion is the inherent reaction of primitive men; the survival struggles of the early ages do not naturally breed trust. Trust is a new human acquisition brought about by the ministry of these planetary seraphim of the Adamic regime. It is their mission to inculcate trust into the minds of evolving men. The Gods are very trustful; the Universal Father is willing freely to trust himself — the Adjuster — to man’s association.

39:5.8 (438.1) This entire group of seraphim was transferred to the new regime after the Adamic miscarriage, and they have ever since continued their labors on Urantia. And they have not been wholly unsuccessful since a civilization is now evolving which embodies much of their ideals of confidence and trust.

39:5.9 (438.2) In the more advanced planetary ages these seraphim enhance man’s appreciation of the

라는 진리를, 사람이 더욱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무지(無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때, 피조물이 미래를 알면 어마어마한 실책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사 철학자들이 깨닫도록, 그들이 도와준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감미로움, 즉 막연하고 전기한 미래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와 매력을 사람이 더 맛볼 수 있게 한다.

5. **운송자**. 행성 운송자들은 개별 세계에서 근무한다. 이 행성으로 데려온, 스라빔에 둘러싸인 대부분의 존재는 이동 중에 있으며; 그들은 단지 잠시 체류할 뿐이며; 자신의 특별한 스랍 운반자의 보호 속에 있지만; 큰 무리의 그런 스라빔이 **유란시아**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유란시아**에서 **예루셈**으로 가는 경우처럼, 지역 행성들로부터 작동하는 운송 인격체다.

천사들에 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통 관념은, 다음과 같이 유래했다: 육신이 죽기 직전의 순간에, 어떤 반사 현상이 인간 정신 속에 때로 일어나기도 하며, 수행하는 천사의 형체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런 어슴푸레한 의식이 시각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그 개인의 정신 속에 지니고 있었던 천사들에 관한 습관적 개념의 용어로 즉시 바뀐다.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은 전적으로, 공중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옛 생각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은 운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스라빔을 볼 수 있도록 승인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체험에 대한 전통이, **유란시아**의 천사 개념을 대체로 고정시켜 왔다. 행성 사이의 운송을 위해서 승객을 받을 준비가 된 운반 스라빔을 지켜볼 때, 그 천사의 머리부터 발까지 뻗어 있는 두 쌍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날개는 에너지 절연체다--곧 마찰 차단물이다.

천상의 존재들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전송되기 위해 스라빔에 둘러싸이게 될 때, 그들은 그 구체의 본부로 운반되며, 합당한 등록을 마친 후에, 운반을 위한 수면상태로 들어간다. 운송 스라빔은 그동안 그 행성의 우주 에너지 기동 바로 위에 있는 수평 지점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에너지 차단물이 열려 있는 동안, 책임 맡은 스랍 보좌관이, 운송 천사의 바로 위쪽으로, 잠자는 인격체를 능숙하게 들여놓는다. 그 다음에 위 쪽 쌍과 아래 쪽 쌍의 차단물이 조심스럽게 닫히고 조절된다.

그리고 나서, 변형자와 전달자들의 영향 아래, 스라빔이 우주 회로의 에너지 흐름 속으로 날아갈 준비가 완료됐을 때, 어떤 이상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스라빔은 양극단을 향해 커지며 호박색 빛깔의 기묘한 빛으로 뒤덮임으로써, 스라빔에 둘러싸인 인격체를 즉시

truth that uncertainty is the secret of contented continuity. They help the mortal philosophers to realize that, when ignorance is essential to success, it would be a colossal blunder for the creature to know the future. They heighten man's taste for the sweetness of uncertainty, for the romance and charm of the indefinite and unknown future.

39:5.10 (438.3) 5. *The Transporters*. The planetary transporters serve the individual worlds. The majority of enseraphimed beings brought to this planet are in transit; they merely stop over; they are in custody of their own special seraphic transporters; bu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uch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These are the transport personalities operating from the local planets, as from Urantia to Jerusalem.

39:5.11 (438.4) Your conventional idea of angels has been derived in the following way: During moments just prior to physical death a reflective phenomenon sometimes occurs in the human mind, and this dimming consciousness seems to visualize something of the form of the attending angel, and this is immediately translated into terms of the habitual concept of angels held in that individual's mind.

39:5.12 (438.5) The erroneous idea that angels possess wings is not wholly due to olden notions that they must have wings to fly through the air. Human beings have sometimes been permitted to observe seraphim that were being prepared for transport service, and the traditions of these experiences have largely determined the Urantian concept of angels. In observing a transport seraphim being made ready to receive a passenger for interplanetary transit, there may be seen what are apparently double sets of wings extending from the head to the foot of the angel. In reality these wings are energy insulators — friction shields.

39:5.13 (438.6) When celestial beings are to be enseraphimed for transfer from one world to another, they are brought to the headquarters of the sphere and, after due registry, are inducted into the transit sleep. Meantime, the transport seraphim moves into a horizontal position immediately above the universe energy pole of the planet. While the energy shields are wide open, the sleeping personality is skillfully deposited, by the officiating seraphic assistants, directly on top of the transport angel. Then both the upper and lower pairs of shields are carefully closed and adjusted.

39:5.14 (438.7) And n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nsformers and the transmitters, a strange metamorphosis begins as the seraphim is made ready to swing into the energy currents of the universe circuits. To outward appearance the seraphim grows pointed at both extremities and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떠날 준비가 다 갖춰지면, 운송 우두머리가 생명 운반체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고, 천사가 알맞게 회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해진 시험을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여행자가 제대로 스라빔에게 둘러싸였다는 것, 에너지가 조절됐다는 것, 그 천사가 절연{絶緣} 됐다는 것, 그리고 출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들 중에서 두 명의 기계장치 통제관이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선다. 이때가 되면 운반 스라빔은 거의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진동하면서 반짝거리는 발광물이 어둡고 모양의 윤곽선을 갖는다. 그때 그 영역의 운반 배차원{配車員}이, 대개 1,000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에너지 발신자의 지원 중대{中隊}들을 불러내며; 그가 운송선의 목적지를 알리게 되면, 스랍 운반체의 왼쪽 스위치 앞으로 나아가 손을 대는데, 그 운송선은 번갯불 같은 속도로 앞을 향해 발사되며, 행성 대기권이 계속될 때까지 천상의 발광체 궤적을 남긴다. 10분도 채 안 돼서, 신기한 그 광경은 스랍의 보강된 시야로부터도 사라질 것이다.

행성의 공간 보고서는, 지정된 영적 본부의 극점{極點}에서 정오에 수신되며, 한편 운송체들은, 동일한 이 장소에서 한밤중에 발송된다. 그것이 가장 알맞은 출발시간이며,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표준 시각이다.

6. **기록원**. 행성이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고, 행성이 우주 정부에 관련되고, 또한 언급되다시피, 이들은 행성의 주요 직무의 관리인이다. 그들은 행성 직무를 기록하는 일을 하지만, 개인적인 삶과 실존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7. **예비군**. 행성 스라빔의 **사타니아** 예비 단체는, **물질 아들**들의 예비군과 밀접하게 연합하면서 **예루셈**에 유지된다. 풍부하게 많은 이 예비군은 이 스랍 계층의 복합적인 활동의 각 국면을 준비한다. 이 천사들은 지역 체계의 개인 소식을 전달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변환기의 필사자, 천사, 그리고 **물질 아들**들뿐 아니라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섬긴다. **유란시아**가 현재 **사타니아**와 **노라티아덱**의 영적 회로들 바깥에 있지만, 너희는 행성 사이의 직무와 다른 면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예루셈**에서 온 이 사자들이, 그 체계의 모든 다른 구체에 가는 것 같이, 이 세계에도 자주 오기 때문이다.

6. 과도기 사역자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듯이, 과도기 사역 스랍

becomes so enshrouded in a queer light of amber hue that very soon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enseraphimed personality. When all is in readiness for departure, the chief of transport makes the proper inspection of the carriage of life, carries out the routine tests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 angel is properly encircuited, and then announces that the traveler is properly enseraphimed, that the energies are adjusted, that the angel is insulated, and that everything is in readiness for the departing flash. The mechanical controllers, two of them, next take their positions. By this time the transport seraphim has become an almost transparent, vibrating, torpedo-shaped outline of glistening luminosity. Now the transport dispatcher of the realm summons the auxiliary batteries of the living energy transmitters, usually one thousand in number; as he announces the destination of the transport, he reaches out and touches the near point of the seraphic carriage, which shoots forward with lightninglike speed, leaving a trail of celestial luminosity as far as the planetary atmospheric investment extends. In less than ten minutes the marvelous spectacle will be lost even to reinforced seraphic vision.

39:5.15 (439.1) While planetary space reports are received at noon at the meridian of the designated spiritual headquarters, the transporters are dispatched from this same place at midnight. That is the most favorable time for departure and is the standard hour when not otherwise specified.

39:5.16 (439.2) 6. *The Recorders*. These are the custodians of the major affairs of the planet as it functions as a part of the system, and as it is related to, and concerned in, the universe government. They function in the recording of planetary affairs but are not concerned with matters of individual life and existence.

39:5.17 (439.3) 7. *The Reserves*. The Satania reserve corps of the planetary seraphim is maintained on Jerusem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reserves of the Material Sons. These abundant reserves repletely provide for every phase of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is seraphic order. These angels are also the personal message bearers of the local systems. They serve transition mortals, angels, and the Material Sons as well as others domicil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ile Urantia is, at present, outside the spiritual circuits of Satania and Norlatiadek, you are otherwise in intimate touch with interplanetary affairs, for these messengers from Jerusem frequently come to this world as to all the other spheres of the system.

6. TRANSITION MINISTERS

39:6.1 (439.4) As their name might suggest, seraphim of transitional ministry serve wherever they can

빔은 피조물이 물질적 지위에서 영적 지위로 변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근무한다. 이 천사들은 인간 거주 세계로부터 체계 수도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지만, 현재 **사타니아**에 있는 그들은, 일곱 맨션 세계에 있는 생존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일곱 임무 체계에 따라 분화돼 있다:

1. **복음전도 스라빔.**
2. **인종 해석자.**
3. **정신 계획가.**
4. **모론시아 조언자.**
5. **기술자.**
6. **기록원_교사.**
7. **돌보는 예비군.**

맨션 세계들과 모론시아 생애를 다루면서 설명할 때, 너희는 과도기의 상승자들을 돌보는 이 스랍 사역자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contribute to creature transition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estate. These angels serve from the inhabited worlds to the system capitals, but those in Satania at present direct their greatest efforts toward the education of the surviving mortals on the seven mansion worlds. This ministry is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even orders of assignment:

- 39:6.2 (439.5) 1. Seraphic Evangsels.
- 39:6.3 (439.6) 2. Racial Interpreters.
- 39:6.4 (439.7) 3. Mind Planners.
- 39:6.5 (439.8) 4. Morontia Counselors.
- 39:6.6 (439.9) 5. Technicians.
- 39:6.7 (439.10) 6. Recorder-Teachers.
- 39:6.8 (439.11) 7. Ministering Reserves.

39:6.9 (439.12) More about these seraphic ministers to transitional ascenders you will learn in connection with th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mansion worlds and the morontia life.

7. 미래의 스라빔

네바돈에서 비교적 오래된 영역과 더 발전된 행성들 이외에서는, 이 천사들이 광범하게 사역하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살빙톤**에서 가까운 스랍 세계들에 예비돼 있는데, 거기서 **네바돈**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밝아올 어떤 때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스라빔은, 상승하는_필사자의 생애와 관련해서 활동하지만, 상승하는 변경된 계층 가운데 누군가와 헤어진 그 필사자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섬긴다.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 또는 **유란시아인**에 관해서 지금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매혹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7. SERAPHIM OF THE FUTURE

39:7.1 (440.1) These angels do not minister extensively except in older realms and on the more advanced planets of Nebadon. Large numbers of them are held in reserve on the seraphic worlds near Salvington, where they are engaged in pursuits relevant to the sometime dawning of the age of light and life in Nebadon. These seraphim do function in connection with the ascendant-mortal career but minister almost exclusively to those mortals who survive by some one of the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39:7.2 (440.2) Inasmuch as these angels are not now directly concerned with either Urantia or Urantians, it is deemed best to withhold the description of their fascinating activities.

8. 스랍의 운명

스라빔은 지방우주에서 기원되며, 더러는 그들이 탄생된 바로 이 영역에서 봉사하는 운명을 성취한다. 어떤 스라빔은 선임(先任) 천사장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찬란한 저녁별**의 고양된 임무에 등용될 수 있으며, 한편 더러는 **저녁별**들과 대등한, 계시되지 않은 존재의 신분과 봉사를 달성한다. 지방우주 운명을 지닌 또 다른 모험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스라빙톤**은 모든 천사의 영원한 목표지로 항상 남아있다. **스라빙톤**은, **낙원**과 **신격** 달성으로 들어가는 천사의 출입구, 즉 시간세계의 사역으로부터 영원성을 갖는 고양된 봉사로 옮기는 과도기 구체다.

8. SERAPHIC DESTINY

39:8.1 (440.3) Seraphim are of origin in the local universes, and in these very realms of their nativity some achieve service destiny. With the help and counsel of the senior archangels some seraphim may be elevated to the exalted duties of Brilliant Evening Stars, while others attain the status and service of the unrevealed co-ordinates of the Evening Stars. Still other adventures in local universe destiny may be attempted, but Seraphington ever remains the eternal goal of all angels. Seraphington is the angelic threshold to Paradise and Deity attainment, the transition sphere from the ministry of time to the exalted

스라빔은 다수의--곧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낙원**을 달성하겠지만, 본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천상의 기능공, **법해석 고문**, 또는 **천상의 기록원**으로서 특화된 근무에서 완전성을 성취함으로써, 개인 자격으로, **낙원**의 스랍 거주지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음. **낙원 동무**가 되고, 그리하여 만물의 중심에 도달하며, 아마 그 후에 스랍 계층 및 다른 존재들에게 영원한 사역자 및 충고자가 됨.

2. **스라빙톤**에 호출됨. 스라빔은 어떤 조건하에 높은 곳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다른 상황에서는 때로 필사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낙원**에 도달한다. 그러나 어느 스랍 쌍이 얼마나 적합하든지 상관없이, **스라빙톤** 또는 다른 곳을 향해서 출발을 개시할 수 없다. 진화로 상승하는 진보 경로를 따라서 **낙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성공한 운명 수호자들 외에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모든 다른 스라빔은, 높은 곳으로 출두하라고 명령하는 소환장을 지니고 오는 3차 최고스라빔의 **낙원** 사자(使者)가 도착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

3. 진화하는 필사자의 기법에 따라서 **낙원**을 달성함. 시간세계의 생애에서 스라빔의 최상의 선택은 수호천사 직책인데, 자신이 궁극적인 생애를 성취하고 스랍으로서 근무하는 영원한 구체에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시간세계의 자녀를 그렇게 몸소 안내하는 자를 운명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신성한 운명에 이르는 경로에서 필사 피조물을 수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귀한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명 수호자들은, 이 근무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더 많이 체험한 천사 인격체 반열에서 모집된다. **조율사**와 융합할 운명을 가진 모든 생존하는 필사자에게는 일시적 수호자가 배정되며, 이 동역자들은 생존하는 필사자가 필수적인 지적 및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 영구적으로 배속될 수 있다. 필사 상승자들은, 맨션 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누구나 영구 스랍 동역자를 소유한다. 이 집단의 돌보는 영은 **유란시아** 이야기와 관련해서 논의될 것이다.

인간 수준의 기원으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불가능한데, 그들은 “너희보다 조금 높게” 창조됐기 때문이며; 필사자가 실존하는 영적 저지대(低地帶)인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피조물에게로 내려가서, 한 걸음씩, 한 세계씩, **하보나** 정문을 향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마련돼 있다. 필사 상승자들이 **하보나** 계도

service of eternity.

39:8.2 (440.4) Seraphim may attain Paradise in scores — hundreds — of ways, but the most important as elaborated in these narratives are the following:

39:8.3 (440.5) 1. To gain admission to the Paradise seraphic abode in a personal capacity by achieving perfection of specialized service as a celestial artisan, a Technical Adviser, or a Celestial Recorder. To become a Paradise Companion and, having thus attained the center of all things, perhaps then to become an eternal minister and adviser to the seraphic orders and others.

39:8.4 (440.6) 2. To be summoned to Seraphington. Under certain conditions seraphim are commanded on high; in other circumstances angels sometimes achieve Paradise in a much shorter time than mortals. But no matter how fitted any seraphic pair may be, they cannot initiate departure for Seraphington or elsewhere. None but successful destiny guardians can be sure of proceeding to Paradise by a progressive path of evolutionary ascent. All others must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the Paradise messenge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who come with the summons commanding them to appear on high.

39:8.5 (440.7) 3. To attain Paradise by the evolutionary mortal technique. The supreme choice of seraphim in the career of time is the post of guardian angel in order that they may attain the career of finality and be qualified for assignment to the eternal spheres of seraphic service. Such personal guides of the children of time are called guardians of destiny, signifying that they guard mortal creatures in the path of divine destiny, and that in so doing they are determining their own high destiny.

39:8.6 (440.8) Guardians of destiny are drawn from the ranks of the more experienced angelic personalities of all orders of seraphim who have qualified for this service. All surviving mortals of Adjuster-fusion destiny have temporary guardians assigned, and these associates may become permanently attached when mortal survivors attain the requisit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Before mortal ascenders leave the mansion worlds, they all have permanent seraphic associates. This group of ministering spirits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Urantia narratives.

39:8.7 (441.1) It is not possible for angels to attain God from the human level of origin, for they are created a “little higher than you”; but it has been wisely arranged that, while they cannot possibly start up from the very bottom, the spiritual lowlands of mortal existence, they may go down to those who do start from the bottom and pilot such creatures, step by step, world by world, to the

를 시작하기 위해 **우버사**를 떠날 때, 육신 속에서 지낸 생애 이후에 배속됐던 이 수호자들은, 자신의 순례 동역자들에게 일시적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 이 수호자들은 광우주에서 천사의 목적지인 **스라빙톤**으로 여행한다. 여기서 이 수호자들은 스랍 광선의 일곱 궤도를 시도하고 틀림없이 성취할 것이다.

물질 생애 동안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됐던 이 스라빔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하보나** 궤도들을 통해서 필사 동역자와 동행하며, 어떤 다른 스라빔은 필사자 상승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중앙우주 궤도들을 지나간다. 그러나 진화하는 모든 스라빔은 상승하는 경로와 상관없이 **스라빙톤**을 지나가며, 대부분은 **하보나** 회로들 대신 이 체험을 겪는다.

스라빙톤은 천사에게 운명의 구체(球體)이며, 그들이 이 세계를 달성하는 것은 필사 순례자들이 **어센딩톤**에서 겪는 체험과 매우 다르다. 천사들은, 자신이 **스라빙톤**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스라빙톤**에 도착한 천사 가운데 타락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완성된 스라빔의 심성에서는 죄가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스라빙톤 졸업생은 다양하게 배정되는데: **하보나** 궤도에서 체험한 운명 수호자들은 대개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에 편입된다. **하보나** 격리 시험에서 통과된 다른 수호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신의 필사 동역자와 다시 결합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더러는 필사 완결성취자의 영구 동역자가 되며, 한편 더러는 필사자가 아닌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에 편입되고, 많은 숫자는 **완료 스랍 단체**에 소집된다.

9. 완료 스랍 단체

천사들은 영들의 **아버지**께 도달하고 완료된 스랍 업무에 받아들여진 후에,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에 대한 사역에 언젠가 배정된다. 그들은 우주들에서 삼자일체된 높은 존재들에게, 그리고 **낙원** 및 **하보나**의 고귀한 업무에 배속된다. 지방 우주의 이 스라빔은, 중앙우주 및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들과 차이날 수밖에 없었던 신성(神性) 잠재력의 부족함을, 체험으로 보충했다. **완료 스랍 단체** 천사들은, 연방우주 제2스라빔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최고스라빔의 높은 **낙원 하보나** 계층들에 대한 보좌관으로서 근무한다. 그런 천사들에게는 시간세계의 생애가 끝났으며; 그들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요, 신성한 인격체들과 어울리는 자이며, **낙원** 완결성취자들과 동등한 자다.

portals of Havona. When mortal ascenders leave Uversa to begin the circles of Havona, those guardians of attachment subsequent to the life in the flesh will bid their pilgrim associates a temporary farewell while they journey to Seraphington, the angelic destination of the grand universe. Here will these guardians attempt, and undoubtedly achieve, the seven circles of seraphic light.

39:8.8 (441.2) Many, but not all, of those seraphim assigned as destiny guardians during the material life accompany their mortal associates through the Havona circles, and certain other seraphim pass through the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in a way that is wholly different from the mortal ascent. But irrespective of the route of ascent, all evolutionary seraphim traverse Seraphington, and the majority pass through this experience instead of the Havona circuits.

39:8.9 (441.3) Seraphington is the destiny sphere for angels, and their attainment of this world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s of the mortal pilgrims on Ascendington. Angels are not absolutely sure of their eternal future until they have attained Seraphington. No angel attaining Seraphington has ever been known to go astray; sin will never find response in the heart of a seraphim of completion.

39:8.10 (441.4) The graduates of Seraphington are variously assigned: Destiny guardians of Havona-circle experience usually enter the Mortal Finaliter Corps. Other guardians, having passed their Havona separation tests, frequently rejoin their mortal associates on Paradise, and some become the everlasting associates of the mortal finaliters, while others enter the various nonmortal finaliter corps, and many a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9.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39:9.1 (441.5) After attainment of the Father of spirits and admission to the seraphic service of completion, angels are sometimes assigned to the ministry of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gain attachment to the high trinitized beings of the universes and to the exalted services of Paradise and Havona. These seraphim of the local universes have experientially compensated the differential in divinity potential formerly setting them apart from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gel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serve as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seconaphim and as assistants to the high Paradise-Havona orders of supernaphim. For such angels the career of time is finished; henceforth and forever they are the servants of God, the consorts of divine personalities, and the peers of the Paradise finaliters.

다수의 완료 스라빔이 자신의 출생지 우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체험으로 완전하게 되는 사역을 함으로써 신성한 재능의 사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비교해서 말하면, **네바돈**은 젊은 우주에 속하며, 따라서 이렇게 돌아온 **스라빙톤** 졸업자를, 더 오래된 어떤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우리 지방 우주는 충분한 숫자의 완료 스라빔을 공급받고 있는데, 진화하는 영역이 빛과 생명의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의 봉사를 현저하게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완료 스라빔은 지금 최고 스라빔 계층과 함께 더 광범하게 근무하지만, 더러는 각각의 다른 천사 계층과 함께 근무한다. 심지어 너희 세계도, **완료 스랍 단체**에서 전문화된 열두 집단의 광범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행성을 감독하는 탁월한 이 스라빔은, 새롭게 임명된 각 **행성 왕자**를 인간거주 세계까지 따라간다.

매혹적인 많은 사역 통로가 완료 스라빔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낙원** 이전{以前} 시대에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되기를 갈망했던 것과 똑같이, **낙원** 이후 체험에서 육신화 된 **낙원 아들들**의 증여 수행원으로서 근무하기를 최고로 바란다. 진화하는 세계의 필사 피조물이 신성{神性}과 영원성의 **낙원** 목표를 향해서 길고 매혹적인 여행을 출발하는 그 우주 계획에,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성취하는 필사자의 모험 전체를 통해서, 완료 스랍인 이 영 사역자들은, 시간세계의 신실하게 사역하는 영들과 함께, 언제든지, 영원토록 너희의 진정한 친구이자 틀림없는 도우미다.

[**네바돈의 스랍 군대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는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39:9.2 (441.6) Large numbers of the completion seraphim return to their native universes, there to complement the ministry of divine endowment by the ministry of experiential perfection. Nebadon is, comparatively speaking, one of the younger universes and therefore does not have so many of these returned Seraphington graduates as would be found in an older realm; nonetheless our local universe is adequately supplied with the completion seraphim, for it is significant that the evolutionary realms disclose increasing need for their services as they near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Completion seraphim now serve more extensively with the supreme orders of seraphim, but some serve with each of the other angelic orders. Even your world enjoys the extensive ministry of twelve specialized group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thes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ccompany each newly commissioned Planetary Prince to the inhabited worlds.

39:9.3 (442.1) Many fascinating avenues of ministry are open to the completion seraphim, but just as they all craved assignment as destiny guardians in the pre-Paradise days, so in the post-Paradise experience they most desire to serve as bestowal attendants of the incarnated Paradise Sons. They are still supremely devoted to that universal plan of starting the mortal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ut upon the long and enticing journey towards the Paradise goal of divinity and eternity. Throughout the whole mortal adventure of finding God and of achieving divine perfection, these spirit ministers of seraphic completion, together with the faithful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always and forever your true friends and unfailing helpers.

39:9.4 (442.2) [Presented by a Melchizedek acting by request of the Chief of the Seraphic Hosts of Nebadon.]

제40편.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

⇨ 039

유랜시아 책

041 ⇨

II 부. 지방우주

제40편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

섹션

소개

1. 진화 스라빔
2. 상승하는 물질 아들
3. 전환된 중도자
4. 인격화된 조율사
5.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6. 하나님의 신앙 아들
7.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8.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9. 영과_융합된 필사자
10. 상승 운명

PAPER 40

THE ASCENDING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Evolutionary Seraphim
2. Ascending Material Sons
3. Translated Midwayers
4. Personalized Adjusters
5. Mortals of Time and Space
6. The Faith Sons of God
7. Father-Fused Mortals
8. Son-Fused Mortals
9. Spirit-Fused Mortals
10. Ascendant Destinies

소개

많은 주요 집단의 우주 존재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일곱 부류로 계시돼 왔다:

1.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3. **영과_융합된 필사자.**
4. **진화 스라빔.**
5. **상승하는 물질 아들.**
6. **전환된 중도자.**
7. **인격화된 조율사.**

진화 세계에서 초라하게 동물에서_기원된 필사자로부터,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화된 조율사**에 이르기까지,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낙원 신격**들이 광범하게 창조하는 내내, 그리고 온 우주에, 신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증여하고 인자하게 자세를 낮춘 영광스런 내력을 제시한다.

INTRODUCTION

^{40:0.1 (443.1)} AS IN many of the major groups of universe beings, seven general classe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have been revealed:

^{40:0.2 (443.2)} 1. Father-fused Mortals.

^{40:0.3 (443.3)} 2. Son-fused Mortals.

^{40:0.4 (443.4)} 3. Spirit-fused Mortals.

^{40:0.5 (443.5)} 4. Evolutionary Seraphim.

^{40:0.6 (443.6)} 5. Ascending Material Sons.

^{40:0.7 (443.7)} 6. Translated Midwayers.

^{40:0.8 (443.8)} 7. Personalized Adjusters.

^{40:0.9 (443.9)} The story of these beings, from the lowly animal-origin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o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Universal Father, presents a glorious recital of the unstinted bestowal of divine love and gracious condescension throughout all time and in all

이런 발표문은, **신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시작했고, 불멸{不滅} 잠재력을 부여받은 삶을 사는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한 집단 한 집단, 우주 규모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훑어 내려왔으며; 이제 --한때 공간의 어느 진화 세계에서 기원된 필사자였던-- 나는, 상승하는 아들신분의 계층에 관한, 더 각별하게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상세히 계속 설명하도록, **살빙톤**으로부터 파송됐다.

이 이야기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세 기본 계층에 할애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자가 아닌 상승하는 아들신분 계층을--곧 스랍, **아담**, 중도자, 및 **조울사**를-- 먼저 고찰할 것이다.

1. 진화 스랍

동물에서 기원된 인간 피조물만이, 아들신분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며; 천사 무리 역시, **낙원**을 달성하는 숭고한 기회를 공유한다. 수호 스랍 역시, 상승하는 시간세계 필사자들과 함께 체험하고 봉사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신분 지위를 획득한다. 그런 천사들은 **스랍빙톤**을 통해서 **낙원**에 도달하며, 다수가 **필사자 완결성취 단계**에 소집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완결성취자 아들신분이라는 숭고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천사로서 훌륭한 성취이고, **영원한 아들**의 계획과 내주하는 **조울사**의 항상_현존하는 도움을 통한 너희의 영원한 생존 달성을 크게 능가하는 업적이지만; 수호 스랍, 그리고 가끔 다른 존재들이, 그런 상승을 실제로 완수한다.

2. 상승하는 물질 아들

하나님의 **물질 아들**은, **멜기세덱** 및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방우주에서 창조됐고, 모두 하강하는 **아들**로서 분류된다. 그리고 정말로 **행성 아담**은--곧 진화 세계의 **물질 아들**과 **딸**은--, 자신이 기원된 구체, 즉 지역 체계의 수도{首都}에서 인간 거주 세계로 하강한다.

그런 **아담**과 **이브**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행성의 공동 사명에 온전히 성공했을 때, 그들 세계에 있는 거주민과, 동일한 운명을 갖는다. 그런 세계가 빛과 생명이라는 진보된 단계에 정착할 때, 신실한 이 **물질 아들**과 **딸**은 모든 행성 경영 임무

universes of the far-flung creation of the Paradise Deities.

40:0.10 (443.10) These presentations began with a description of the Deities, and group by group, the narrative has descended the universal scale of living beings until it has reached the lowest order of life endowed with the potential of immortality; and now am I dispatched from Salvington — onetime a mortal of origin on an evolutionary world of space — to elaborate and continue the recital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Gods respecting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mor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and space.

40:0.11 (443.11) Since the greater part of this narrative will be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three basic orders of ascending mortals, consideration will first be given to the nonmortal ascending orders of sonship — seraphic, Adamic, midwayer, and Adjuster.

1. EVOLUTIONARY SERAPHIM

40:1.1 (443.5) Mortal creatures of animal origin are not the only beings privileged to enjoy sonship; the angelic hosts also share the supernal opportunity to attain Paradise. Guardian seraphim, through experience and service with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lso achieve the status of ascendant sonship. Such angels attain Paradise through Seraphington, and many are ev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40:1.2 (443.6) To climb to the supernal heights of finaliter sonship with God is a masterly achievement for an angel, an accomplishment far transcending your attainment of eternal survival through the plan of the Eternal Son and the ever-present help of the indwelling Adjuster; but the guardian seraphim, and occasionally others, do actually effect such ascensions.

2. ASCENDING MATERIAL SONS

40:2.1 (444.1) The Material Sons of God are created in the local universe along with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who are all classified as descending Sons. And indeed, the Planetary Adams —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the evolutionary worlds — are descending Sons, coming down to the inhabited worlds from their spheres of origi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40:2.2 (444.2) When such an Adam and Eve are wholly successful in their joint planetary mission as biologic uplifters, they share the destiny of the inhabitants of their world. When such a world is settled in the advanced stages of light and life, this faithful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permitted to

에서 물러나도록 허락되며, 하강하는 모험에서 그렇게 해방된 후에는, 완성된 **물질 아들**로서 지방 우주의 기록에 등록하도록 허락된다. 마찬가지로, 행성 임무가 오래 연기될 때에는, 주둔하는 신분의 **물질 아들**들은--곧 지역 체계의 시민은-- 자신이 처한 구체의 활동에서 물러날 수 있고, 완성된 **물질 아들**로서 비슷하게 등록한다. 이런 절차가 있는 후에, 그런 해방된 **아담**과 **이브**는,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며, 그 당시의 신분과 영적으로 도달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하보나**와 **낙원**으로 가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자 및 상승하는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낙원 신격**들을 영원히 섬기면서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한다.

resign all planetary administrative duties, and after being thus liberated from the descending adventure, they are permitted to register themselves as perfected Material Sons on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Likewise, when planetary assignment is long delayed, may the Material Sons of stationary status — the citizens of the local systems — withdraw from the activities of their status spheres and similarly register as perfected Material Sons. After these formalities such liberated Adams and Eves are accredited as ascending Sons of God and may immediately begin the long journey to Havona and Paradise, starting at the exact point of their then present status and spiritual attainment. And they make this journey in company with the mortal and other ascending Sons, continuing until they have found God and have achieved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in the eternal service of the Paradise Deities.

3. 전환된 중도자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성에 증여됨으로써 얻은 즉각적인 유익을 박탈당하더라도, **낙원** 상승이 멀리 연기될지라도, 그럼에도 진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시기들을 달성하는데, (만약 그 전이 아니라면) 그 직후에 두 집단의 중도 피조물 모두가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 빛의 성전 {聖殿}이 하강하고, **행성 왕자**가 **행성 주권자** 직위로 승진하는 날, 때로는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인간 사촌들과 함께 변환되기도 한다. 행성 봉사에서 벗어남에 따라, 두 조직은 모두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방우주에 등록되며, 물질 세계의 필사자 인종의 진보를 위해서 준비된 바로 그 경로를 따라서, 긴 **낙원** 상승을 즉각 시작한다. 1차 집단은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가 되게 돼있지만, 2차 또는 **아담** 후손 중도자는 모두,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등록되도록 길이 정해진다.

3. TRANSLATED MIDWAYERS

40:3.1 (444.3) Although deprived of the immediate benefits of the planetary bestowal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though the Paradise ascent is long deferred, nevertheless, soon after an evolutionary planet has attained the intermediate epochs of light and life (if not before), both groups of midway creatures are released from planetary duty. Sometimes the majority of them are translated, along with their human cousins, on the day of the descent of the temple of light and the elevation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dignity of Planetary Sovereign. Upon being relieved of planetary service, both orders are registered in the local universe as ascending Sons of God and immediately begin the long Paradise ascent by the very routes ordained for the progression of the mortal races of the material worlds. The primary group are destined to various finaliter corps, but the secondary or Adamic midwayers are all routed for enrollment in the Mortal Corps of Finality.

4. 인격화된 조율사

시간세계의 필사자가, **만유의 아버지**께서 주신 영 선물과 행성에서 연합을 이루면서 자신의 혼의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런 실패는, **조율사**의 편에서 의무, 사역, 봉사, 또는 헌신을 어떤 면으로든지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다. 필사자가 죽을 때, 버림받은 그런 **관찰자**는 **디비닝톤**으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생존하지 못한 자가 판결 받은 후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다시 배정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런 종류의 근무를 반복한 후, 또는 육신화된 증여 **아들**의 내주하는 **조율사**로서 활약하는 것 같은 어떤 비범한 체험을

4. PERSONALIZED ADJUSTERS

40:4.1 (444.4) When the mortals of time fail to achieve the eternal survival of their souls in planetary association with the spirit gifts of the Universal Father, such failure is never in any way due to neglect of duty, ministry, service, or devotion on the part of the Adjuster. At mortal death, such deserted Monitors return to Divinington, and subsequently,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he nonsurvivor, they may be reassigned to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Sometimes, after repeated services of this sort or following some unusual experience, such as

가진 후에, **만유의 아버지**가 이 유능한 **조울사**를 인격화 시킨다.

인격화된 조울사들은 독특하면서 불가해한 계층의 존재다. 그들은 원래 실존적 선{先}인격자 신분에서 왔고, 물질 세계의 초라한 필사자들의 삶과 생애에 참여함으로써 체험을 쌓아 왔다.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께서 창조된 한 피조물에게 체험적 인격을 증여하시는, 계속해서 몸소 베푸시는 사역에서, 숙련된 이 **사고 조울사**들에게 증여된 그 인격이 기원되고 솟아나기 때문에, 이 **인격화된 조울사**들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모든 아들신분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부류로 분류된다.

5.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존재들의 사슬에서 필사자가 마지막 고리를 대표한다. 점점 덜 신성하고 점점 더 인간적인 일련의 인격화를 통해서, 너희와 매우 비슷한 존재, 즉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한 원본 아들**의 개인적 접촉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신앙이 파악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영적으로 자각하도록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원본의 무한한 영**은, 점점 덜 신성하게 되고 점점 더 인간적이 되는 일련의 여러 계층으로, 그 영역의 분투하는 피조물에게 점점 더 접근하는데, --너희보다 조금 뛰어나게 창조된--천사들에서 그 표현이 한계점에 도달하며, 그들은 시간세계의 필사자 생애에서 평생 여행하는 동안 너희를 친히 보호하고 안내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두루, 거의 한 없는 숫자의 상승하는 피조물과 그토록 가깝게 직접 접촉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는 않으며, 낮추실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위 피조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시며; 너는 신성한 현존 없이 지내지 않는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 형태화로 나와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신성한 **관찰자**인 내주하는 **사고 조울사**의 정체성으로 네 안에 있고 너에게 속하신다. 그리하여 인격체로서 그리고 영으로서 너희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아버지**는, 필사 아들과 딸의 바로 그 혼과 내적으로 친교하는 영 접촉에서, 그리고 인격 회로에서, 너희에게 아주 가깝게 접근하신다.

영과 일체가 되는 것이, 인격자가 생존하는 비결이며, 영적 상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융합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영이 **사고 조울사**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은, 이런 신성한 선물, 즉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functioning as the indwelling Adjuster of an incarnated bestowal Son, these efficient Adjusters are personalized by the Universal Father.

40:4.2 (445.1) Personalized Adjusters are beings of a unique and unfathomable order. Originally of existential prepersonal status, they have experientialized by participation in the lives and careers of the lowly mortals of the material worlds. And since the personality bestowed upon these experienced Thought Adjusters takes origin, and has its wellspring, in the Universal Father's personal and continuing ministry of the bestowals of experiential personality upon his creature creation, these Personalized Adjusters are classified as ascending Sons of God, the highest of all such orders of sonship.

5. MORTALS OF TIME AND SPACE

40:5.1 (445.2) Mortals represent the last link in the chain of those beings who are called sons of God. The personal touch of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passes on down through a series of decreasingly divine and increasingly human personalizations until there arrives a being much like yourselves, one you can see, hear, and touch. And then you are made spiritually aware of the great truth which your faith may grasp — sonship with the eternal God!

40:5.2 (445.3) Likewise does the Original and Infinite Spirit, by a long series of decreasingly divine and increasingly human orders, draw nearer and nearer to the struggling creatures of the realms, reaching the limit of expression in the angels — than whom you were created but a little lower — who personally guard and guide you in the life journey of the mortal career of time.

40:5.3 (445.4) God the Father does not, cannot, thus downstep himself to make such near personal contact with the almost limitless number of ascending creatur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the Father is not deprived of personal contact with his lowly creatures; you are not without the divine presence. Although God the Father cannot be with you by direct personality manifestation, he is in you and of you in the identity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the divine Monitors. Thus does the Father, who is the farthest from you in personality and in spirit, draw the nearest to you in the personality circuit and in the spirit touch of inner communion with the very souls of his mortal sons and daughters.

40:5.4 (445.5) Spirit identification constitutes the secret of personal survival and determines the destiny of spiritual ascension. And since the Thought Adjusters are the only spirits of fusion potential to be identified with man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are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율사**가 일시적으로, 즉 체험하는 동안 체험하는 필사자.
2. **조율사**와_융합되지 않는 유형의 필사자.
3. **조율사**와_융합될 잠재력을 가진 필사자.

제1 계열 --조율사가 일시적으로, 즉 체험하는 동안 체험하는 필사자. 진화하는 어떤 행성이든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데, 제2 계열에 속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단계에 이 계열의 명칭이 사용된다.

제1 계열의 필사자는, 인류가 진화하는 초기 시대에 공간의 세계들에 거주하며,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인간 정신들을 포함한다. **아담** 이전{以前}의 **유란시아** 같은 많은 세계에서는, 지극히 많은 숫자의 고상하고 더 발달된 유형의 원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조율사**와 융합하지는 못한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이 상급{上級}의 영적인 의지작용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조율사**들은 육신 속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이 투쟁하는 피조물의 정신을 점유하며, 의지를 지닌 그런 피조물에 **조율사**들이 내주하는 순간, 집단 수호천사들이 역할을 개시한다. 제1 계열의 이 필사자들은 개인 수호자를 갖지 못하지만, 집단 관리인을 갖는다.

체험하는 **조율사**는, 원시 인간이 육신 속에서 보내는 전체 생애 동안 그와 함께 있다. **조율사**는 원시인의 진보에 많이 기여하지만, 그런 필사자와 영원한 합동을 형성할 수는 없다. **조율사**들의 일시적 사역은 두 가지를 이룩하는데: 첫째로, 그들은 진화하는 지능의 본성과 작용에서 가치 있고 실제적인 체험을 획득하며, 이는 다른 세계들에서 비교적 더 발달된 존재들과 나중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귀중하게 될 어떤 체험이다. 둘째로, **조율사**들의 일시적 체류는, 나중에 가능하게 될 영 융합을 위해서, 필사 상대자를 준비시키는 쪽으로 많이 기여한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유형의 모든 혼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영적 포용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성취하며, 그리하여 지방우주 체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된다. **아담** 이전{以前}에 많은 인격자가, 그렇게 해서 **유란시아**로부터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로 올라갔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지성의 더 높은 수준으로 필사적 사람이 올라가야만 하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들은, 상승하는 각 단계마다 사람의 상태와 부족함에 주목하시며; 진화하는 인종의 초기 시절에 투쟁하는 이 필사자들이 최종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들은 항상 신성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매력적으로 자비롭기까지 하시다.

primarily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lation to these divine gifts,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s. This classification is as follows:

- 40:5.5 (445.6) 1. Mortals of the transient or experiential Adjuster sojourn.
- 40:5.6 (445.7) 2. Mortals of the non-Adjuster-fusion types.
- 40:5.7 (445.8) 3. Mortals of Adjuster-fusion potential.

40:5.8 (445.9) *Series one — mortals of the transient or experiential Adjuster sojourn.* This series designation is temporary for any evolving planet, being us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all inhabited worlds except those of the second series.

40:5.9 (445.10) Mortals of series one inhabit the worlds of space during the earlier epochs of the evolution of mankind and embrace the most primitive types of human minds. On many worlds like pre-Adamic Urantia great numbers of the higher and more advanced types of primitive men acquire survival capacity but fail to attain Adjuster fusion. For ages upon ages, before man's ascent to the level of higher spiritual volition, the Adjusters occupy the minds of these struggling creatures during their short lives in the flesh, and the moment such will creatures are indwelt by Adjusters, the group guardian angels begin to function. While these mortals of the first series do not have personal guardians, they do have group custodians.

40:5.10 (446.1) An experiential Adjuster remains with a primitive human being throughout his entire lifetime in the flesh. The Adjusters contribute much to the advancement of primitive men but are unable to form eternal unions with such mortals. This transient ministry of the Adjusters accomplishes two things: First, they gain valuable and actual experience in the nature and working of the evolutionary intellect, an experience which will be invaluable in connection with later contacts on other worlds with beings of higher development. Second, the transient sojourn of the Adjusters contributes much towards preparing their mortal subjects for possible subsequent Spirit fusion. All God-seeking souls of this type achieve eternal life through the spiritual embrace of the Mother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thus becoming ascending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 regime. Many persons from pre-Adamic Urantia were thus advanced to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40:5.11 (446.1) The Gods who ordained that mortal man should climb to higher levels of spiritual intelligence through long ages of evolutionary trials and tribulations, take note of his status and needs at every stage of the ascent; and always are they divinely fair and just, even charmingly merciful, in the final judgments of these struggling mortals of the early days of the evolving races.

제2 계열 --조울사와_융합되지_않는 유형의 필사자. 이들은 내주하는 **조울사**와 영원한 합동을 이룰 수 없는, 특화된 유형의 인간이다. 한 개, 두 개, 및 세 개의 뇌를 가진 인종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울사** 융합의 요인이 아니며; 그런 모든 필사자가 비슷하지만, **조울사**와_융합되지_않는 이 유형은, 의지를 지닌 피조물 중에서 완전히 다르고 현저하게 변경된 계층이다. 비호흡자{非呼吸者} 가운데 다수가 이 집단에 속하고, 대체로 **조울사**와 융합하지 않는 수많은 다른 집단이 있다.

제1 계열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의 구성원은 각자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하나의 **조울사**의 보살핌을 받는다. 현세의 생애 동안, 이 **조울사**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내주한 상대자를 위해서, 필사자에게 융합 잠재력이 있는 다른 세계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제2 계열 필사자 속에 무체험 **조울사**가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상급 인간 유형은 흔히 능숙하고 경험 있는 **관찰자**와 연결된다.

동물에서_기원된 피조물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에서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 유형의 필사자에게 베푸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헌신된 섬김을 누린다. 융합 잠재력이 있는 세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융합이 없는 행성에서도 **조울사**와 스랍이 충분히 협동하며; 운명 수호자들은 **유란시아**의 경우와 똑같이 그런 구체에서 사역하고, 필사자가 생존할 때 비슷하게 작용하며, 그 때 생존하는 혼은 **영**과 융합된다.

너희가 맨션 세계들에서 이런 변경된 필사자 유형과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그들과 의사소통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똑같은 체계 언어로 말하지만, 변경된 기법을 사용한다. 이 존재들은 영과 인격이 현현(顯現)할 때 너희 계층의 피조물 생애와 동일한데, 어떤 육신적 특색, 그리고 **사고 조울사**와 융합할 수 없다는 사실만 다르다.

이런 유형의 피조물이 왜 **만유의 아버지의 조울사**와 결코 융합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은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더러는, 유별난 행성 환경에서 실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생명 운반자**들이 애쓸 때, 의지를 지닌 지성 피조물을 만드는 우주 계획에 그런 극단적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기 때문에, **조울사**와 영구적 합동을 이루는 것이 내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상승 계획의 의도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부분인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3 계열 --조울사와_융합할_잠재력을 가진 필사자. **아버지**와_융합되는 모든 필사자는, **유란시아** 인종과 똑같이, 동물에서 기원된다. 그들 중에는 **조울사**와_융합할 잠재력을 갖는 1개_뇌, 2개

40:5.12 (446.2) *Series two — mortals of the non-Adjuster-fusion types.* These are specialized types of human beings who are not able to effect eternal union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Type classification among the one-, two-, and three-brained races is not a factor in Adjuster fusion; all such mortals are akin, but these non-Adjuster-fusion types are a wholly different and markedly modified order of will creatures. Many of the nonbreathers belong to this series, and there are numerous other groups who do not ordinarily fuse with Adjusters.

40:5.13 (446.3) Like series number one, each member of this group enjoys the ministry of a single Adjuster during lifetime in the flesh. During temporal life these Adjusters do everything for their subjects of temporary indwelling that is done on other worlds where the mortals are of fusion potential. The mortals of this second series are often indwelt by virgin Adjusters, but the higher human types are often in liaison with masterful and experienced Monitors.

40:5.14 (446.4) In the ascendant plan for upstepping the animal-origin creatures, these beings enjoy the same devoted service of the Sons of God as is extended to the Urantia type of mortals. Seraphic co-operation with Adjusters on the nonfusion planets is just as fully provided as on the worlds of fusion potential; the guardians of destiny minister on such spheres just as on Urantia and similarly function at the time of mortal survival, at which time the surviving soul becomes Spirit fused.

40:5.15 (446.5) When you encounter these modified mortal types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find no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m. There they speak the same system language but by a modified technique. These beings are identical with your order of creature life in spirit and personality manifestations, differing only in certain physical features and in the fact that they are nonfusible with Thought Adjusters.

40:5.16 (447.1) As to just why this type of creature is never able to fuse with the Adjusters of the Universal Father, I am unable to say. Some of us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 Life Carriers, in their efforts to formulate beings capable of maintaining existence in an unusual planetary environment,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making such radical modifications in the universe plan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that it becomes inherently impossible to bring about permanent union with the Adjusters. Often have we asked: Is this an intended or an unintended part of the ascension plan? but we have not found the answer.

40:5.17 (447.2) *Series three — mortals of Adjuster-fusion potential.* All Father-fused mortals are of animal origin, just like the Urantia races. They embrace mortals of the one-brained, two-brained, and three-brained types of Adjuster-fusion

_뇌, 3개_뇌를 가진 유형들이 포함된다. **유란시아인**은 중간 유형, 즉 2개_뇌를 가진 유형인데, 여러 면에서 1개_뇌를 가진 집단보다 우수하지만, 3개_뇌를 가진 계층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제한돼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육체적_뇌 재능은, **조울사**의 중여에서, 스랍의 섬김에서, 또는 어떤 다른 국면의 영 사역에도 요인이 아니다. 세 가지 뇌 유형 사이의 지적 및 영적 차이는, 다른 면에서 정신 재능과 영적 잠재력이 매우 비슷한 개인의 특징을 이루는데, 현세의 삶에서 가장 크고, 맨션 세계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체계 본부에서부터 계속,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진보가 같아지고, 그들의 궁극적인 **낙원** 운명은 동일하다.

계승되지 않은 계열 이 이야기는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혹적인 차이점을 포함시킬 수 없다. 열 세계마다 하나는, 10진 행성, 즉 실험 행성임을 너희가 알지만, 진화하는 구체들의 행렬을 잠시 멈추게 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같은 집단의 행성들 사이에서처럼, 살아있는 피조물의 계시된 계층들 사이에서조차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진술에서는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차이점만 밝힌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에 대한 어떤 고찰에서든지, 상승 생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필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점을 영원토록 분명히 해두자:내주하는 **조울사**와 기꺼이 협동하려는 태도만 보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려는 태도만 보인다면, 이 바램이 비록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밝혀주는 참 빛”이라는 사실을 원시적으로 납득하는, 희미한 첫 불빛에 불과하더라도, 필사자 실존의 어떤 가능한 국면에 있는 어떤 혼이든지 모두 생존할 것이다.

6. 하나님의 신앙 아들

필사자 인종들은, 총명하고 인격있는 창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을 대표한다. 너희 필사자는 신성하게 사랑 받으며, 각자 영광스런 체험을 하는 확실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 신성한 계층에 속하지는 않으며;전적으로 필사 존재다. 너희는 융합이 일어나는 순간에 상승하는 아들로써 간주되겠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필사자의 신분은, 생존하는 인간 혼이 어떤 유형의 영원하고 죽지 않는 영과 최종적으로 융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앙 아들 신분이다.

유란시아 인간 같은 그런 초라한 물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즉 가장 높으신 분의 신앙 자녀라는 것은 엄숙하고 숭고한 사실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증여되셔서 우

potential. Urantians are of the intermediate or two-brained type, being in many ways humanly superior to the one-brained groups but definitely limited in comparison with the three-brained orders. These three types of physical-brain endowment are not factors in Adjuster bestowal, in seraphic service, or in any other phase of spirit ministry.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ifferential between the three brain types characterizes individuals who are otherwise quite alike in mind endowment and spiritual potential, being greatest in the temporal life and tending to diminish as the mansion worlds are traversed one by one.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on, the progression of these three types is the same, and their eventual Paradise destiny is identical.

40:5.18 (447.3) *The unnumbered series.* These narratives cannot possibly embrace all of the fascinating variations in the evolutionary worlds. You know that every tenth world is a decimal or experimental planet, but you know nothing of the other variables that punctuate the processional of the evolutionary spheres. There are differences too numerous to narrate even between the revealed orders of living creatures as between planets of the same group, but this presentation makes clear the essential differences in relation to the ascension career. And the ascension care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ny consideration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40:5.19 (447.4) As to the chances of mortal survival, let it be made forever clear: All souls of every possible phase of mortal existence will survive provided they manifest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and exhibit a desire to find God and to attain divine perfection, even though these desires be but the first faint flickers of the primitive comprehension of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6. THE FAITH SONS OF GOD

40:6.1 (447.5) The mortal races stand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lowest order of intelligent and personal creation. You mortals are divinely beloved, and every one of you may choose to accept the certain destiny of a glorious experience, but you are not yet by nature of the divine order; you are wholly mortal. You will be reckoned as ascending sons the instant fusion takes place, but the status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is that of faith sons prior to the event of the final amalgamation of the surviving mortal soul with some type of eternal and immortal spirit.

40:6.2 (448.1) It is a solemn and supernal fact that such lowly and material creatures as Urantia human beings are the sons of God, faith children of the Highest.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게 됐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이미 주셨다.” 반면에 “너희가 장차 바뀌게 될 그 상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의 신앙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 두려워할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 신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게 됐다.” 옛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나는 저희에게도 내 집에서 아들보다 더 나은 자리와 이름을 줄 것이며; 그 이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셨다.”

필사가가 거주하는 모든 진화 세계는, 은혜와 자비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 즉 신성한 가족에 속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필사 존재들을 품고 있다. **유란시아** 필사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희는 영적인 약속의 아들, 즉 신앙 아들이다. 너희는 자신이 아들신분의 실체임을 믿으며, 그리하여 너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신분은 영원한 현실이 된다.

2.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사실 그는 너희의 맏형이며;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즉 승리를 거둔 **미가엘**과 영으로 형제 관계를 맺게 되면, 영으로 너희는 또한 너희가 공동으로 모시는 그 **아버지**의--심지어 **만유의 아버지**의--아들임에 틀림없다.

3. 너희가 아들인 것은,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부여졌고, 모든 **유란시아** 인종에게 값없이 확실하게 증여됐기 때문이다. 이 영은 너희의 근원인 신성한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신성한 **아들**의 근원이신 **낙원 아버지**께로 너희를 항상 이끈다.

4.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자유로운 바라심에 따라서, 너희에게 피조물 인격을 주셨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신성한 자발성을 일정량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될 모든 사람과 그 자발성을 공유하신다.

5. 너희 안에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아버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

7.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조울사들을 보내서 내주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해한 신비 가운데 하나다.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갖는 이 단편들은, 피조물이 불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조울사**는 불멸의 영이며, **조울사**와 합동하는 것이, 융합된 필사자의 혼에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다.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the power to recognize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While “it does not yet appear what you shall be,” even now “you are the faith sons of God”; “for you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whereby you cry, ‘our Father.’” Spoke the prophet of old in the name of the eternal God: “Even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a place and a name better than sons; I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one that shall not be cut off.”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40:6.3 (448.2) All evolutionary worlds of mortal habitation harbor these faith sons of God, sons of grace and mercy, mortal beings belonging to the divine family and accordingly called the sons of God. Urantia mortals are entitled to regard themselves as being the sons of God because:

40:6.4 (448.3) 1. You are sons of spiritual promise, faith sons; you have accepted the status of sonship. You believe in the reality of your sonship, and thus does your sonship with God become eternally real.

40:6.5 (448.4) 2. A Creator Son of God became one of you; he is your elder brother in fact; and if in spirit you become truly related brothers of Christ, the victorious Michael, then in spirit must you also be sons of that Father which you have in common — even the Universal Father of all.

40:6.6 (448.5) 3. You are sons because the spirit of a Son has been poured out upon you, has been freely and certainly bestowed upon all Urantia races. This spirit ever draws you toward the divine Son, who is its source, and toward the Paradise Father, who is the source of that divine Son.

40:6.7 (448.6) 4. Of his divine free-willness, the Universal Father has given you your creature personalities. You have been endowed with a measure of that divine spontaneity of freewill action which God shares with all who may become his sons.

40:6.8 (448.7) 5. There dwells within you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you are thus directly related to the divine Father of all the Sons of God.

7. FATHER-FUSED MORTALS

40:7.1 (448.8) The sending of Adjusters, their indwelling, is indeed one of the unfathomable mysteries of God the Father. These fragment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carry with them the potential of creature immortality. Adjusters are immortal spirits, and union with them confers eternal life upon the soul of the fused

바로 너희 종족에서 생존하는 필사자는,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이 집단에 속한다. 지금 너희는 행성에 있는 아들, 즉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移植)함으로써 발생되고, **아담** 후손의 생명 주입으로 변경된, 아직은 도저히 상승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진화하는 피조물이지만;--심지어 최고 높은 영광과 신성을 성취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정말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아들이며, 신앙으로써 그리고 내주하는 **조울사**의 영화(靈化)시키는 활동에 자유의지로 협동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신분이라는 이 영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너와 너의 **조울사**가 최종으로 영구히 융합할 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실제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진화하는 행성에서 내주하여 사역하는 **조울사**의 생애를 자세히 전하는 것은, 내 임무에 속하지 않으며;이 위대한 진리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너희의 생애 전체를 다뤄야 한다. 나는 **조울사**와 융합된 필사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울사** 역할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내주하는 이 **하나님** 단편은, 육체로 실존하게 되는 초기부터, **네바돈**과 **오르본톤**에서 상승하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하보나**를 거쳐서 바로 그 **낙원**에 이르기까지, 너희 계층의 존재와 함께 있다. 그 후에,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바로 이 **조울사**는 너와 하나이며 너에게 속한다.

이들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필사자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에게 증여하셔서, 자신의 영을 네 안에 두셨으며;따라서 그분은 내가 궁극적으로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신다. 시간세계의 필사자 구체(球體)로부터, 영원성의 신성한 영역까지, 인간이 상승하는 것에 관한 설명은, 내 임무에 포함되지 않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이겠지만, 숭고한 이 모험은 필사적 사람에 관한 최고의 연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과 융합하는 것은, 언젠가 **낙원**에 도달함을 신이 비준(批准)하는 것에 상당하며, **조울사**와 융합된 그런 필사자는, **하보나** 회로들을 모두 거쳐서 **낙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유일한 인간 계층이다. **조울사**와 융합된 필사자에게는, 우주에서 봉사하는 생애가 활짝 펼쳐져 있다. 얼마나 존엄한 운명과 영광스런 달성이 너희 각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희는 자신에게 이뤄진 것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는가? 너희는 --소위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인생의 초라한 길을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는 너희조차--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성취의 절정이 얼마나 장엄한지 납득하고 있는가?

mortal.

40:7.2 (448.9) Your own races of surviving mortals belong to this group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You are now planetary sons, evolutionary creatures derived from the Life Carrier implantations and modified by the Adamic-life infusion, hardly yet ascending sons; but you are indeed sons of ascension potential — even to the highest heights of glory and divinity attainment — and this spiritual status of ascending sonship you may attain by faith and by freewill co-operation with the spiritualizing activities of the indwelling Adjuster. When you and your Adjusters are finally and forever fused, when you two are made one, even as in Christ Michael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are one, then in fact have you become the ascending sons of God.

40:7.3 (449.1) The details of the Adjuster career of indwelling ministry on a probationary and evolutionary planet are not a part of my assignment; the elaboration of this great truth embraces your whole career. I include the mention of certain Adjuster functions in order to make a replete statement regarding Adjuster-fused mortals. These indwelling fragments of God are with your order of being from the early days of physical existence through all of the ascending career in Nebadon and Orvonton and on through Havona to Paradise itself. Thereafter, in the eternal adventure, this same Adjuster is one with you and of you.

40:7.4 (449.2) These are the mortals who have been commanded by the Universal Father,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The Father has bestowed himself upon you, placed his own spirit within you; therefore does he demand ultimate perfection of you. The narrative of human ascent from the mortal spheres of time to the divine realms of eternity constitutes an intriguing recital not included in my assignment, but this supernal adventure should be the supreme study of mortal man.

40:7.5 (449.3) Fusion with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is equivalent to a divine validation of eventual Paradise attainment, and such Adjuster-fused mortals are the only class of human beings who all traverse the Havona circuits and find God on Paradise. To the Adjuster-fused mortal the career of universal service is wide open. What dignity of destiny and glory of attainment await every one of you! Do you fully appreciate what has been done for you? Do you comprehend the grandeur of the heights of eternal achievement which are spread out before you? — even you who now trudge on in the lowly path of life through your so-called “vale of tears”?

8.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

8. SON-FUSED MORTALS

거의 모든 생존하는 필사자가, 맨션 세계 가운데 하나에 도착하거나, 비교적 높은 모론시아 구체에 도착하는 즉시 자신의 **조울사**와 융합 되는 반면, 융합이 연기되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더러는 그들이 우주 본부의 최종 교육 세계들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에 대한 이 최종 확실성을 체험하지 못하며; 끝없는 생명을 향한 이 필사 후보자 가운데 더러는, 자신의 충실한 **조울사**와 정체성을 융합하기에 완전히 실패한다.

판결하는 당국(當局)은 그런 필사자에게 생존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조울사**도, **디비닝톤**에서 돌아옴으로써 맨션 세계들까지 올라가는 그들의 상승에 협력해 왔다. 그런 존재들은, 체계, 성좌, 및 **살빙톤** 회로의 교육 세계들을 통해서 상승해 왔으며, “일흔 번씩 일곱 번”이나 융합할 기회를 가졌으나, **조울사**와 하나됨을 여전히 성취할 수 없었다.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와 융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될 때, **창조주 아들**의 생존 심판관들이 소집된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의 개인 대표자가 인정하는 이 조사(照査) 법정이, 상승하는 필사자에게서, 융합을 달성하지 못할 어떤 원인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지방우주 기록부에 그렇게 보증하고, 이 평결문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정식으로 통보한다. 그 결과, 내주하던 **조울사**는 **인격화된 관찰자들**의 확인을 받기 위해 **디비닝톤**으로 즉시 돌아가며, 이렇게 작별함에 따라서 모론시아 필사자는 **창조주 아들**의 영의 개별화 된 선물과 즉시 융합된다.

네바돈의 모론시아 구체들을 **영과** 융합된 필사자들과 공유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아들**과 융합된 이 피조물은, 아득히 먼 **낙원 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조울사**와 융합된 형제들과, **오르본톤**의 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형제이며, 너희는 연방우주의 훈련 세계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 그들과 연합하기를 몹시 즐기게 될 것이다.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는 숫자가 많은 집단이 아니어서, **오르본톤** 연방우주에는 100만 명 미만이 있다. **낙원**에 거주하는 운명을 제외하고, 그들은 **조울사**와 융합된 동역자들과 모든 면에서 똑 같다. 그들은 연방우주 임무를 띠고 **낙원**으로 자주 여행하지만, 거기에 영구히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 계층으로서는,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로 제한돼 있다.

9. 영과 융합된 필사자

영과 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는, **제3 근원** 인

40:8.1 (449.4) While practically all surviving mortals are fused with their Adjusters on one of the mansion worlds or immediately upon their arrival on the higher morontia spheres, there are certain cases of delayed fusion, some not experiencing this final surety of survival until they reach the last educational worlds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a few of these mortal candidates for never-ending life utterly fail to attain identity fusion with their faithful Adjusters.

40:8.2 (449.5) Such mortals have been deemed worthy of survival by the adjudicational authorities, and even their Adjusters, by returning from Divinington, have concurred in their ascension to the mansion worlds. Such beings have ascended through a system, a constellation, and through the educational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they have enjoyed the “seventy times seven” opportunities for fusion and still have been unable to attain oneness with their Adjusters.

40:8.3 (449.6) When it becomes apparent that some synchronizing difficulty is inhibiting Father fusion, the survival referees of the Creator Son are convened. And when this court of inquiry, sanctioned by a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ncients of Days, finally determines that the ascending mortal is not guilty of any discoverable cause for failure to attain fusion, they so certify on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and duly transmit this finding to the Ancients of Days. Thereupon does the indwelling Adjuster return forthwith to Divinington for confirmation by the Personalized Monitors, and upon this leave-taking the morontia mortal is immediately fused with an individualized gift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40:8.4 (450.1) Much as the morontia spheres of Nebadon are shared with the Spirit-fused mortals, so do these Son-fused creatures share the services of Orvonton with their Adjuster-fused brethren who are journeying inward towards the far-distant Isle of Paradise. They are truly your brethren, and you will greatly enjoy their association as you pass through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40:8.5 (450.2) Son-fused mortals are not a numerous group, there being less than one million of them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Aside from residential destiny on Paradise they are in every way the equals of their Adjuster-fused associates. They frequently journey to Paradise on superuniverse assignment but seldom permanently reside there, being, as a class, confined to the superuniverse of their nativity.

9. SPIRIT-FUSED MORTALS

40:9.1 (450.3) Ascending Spirit-fused mortals are not

격체가 아니며, **아버지**의 인격 회로에 포함되지만, **제3 근원 및 중심**의 선{先}정신 영의 개별화된 존재와 융합했다. 그런 **영** 융합은, 자연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필사자가 맨션 세계에서 모른시아 실존으로서 깨어날 때에만 발생한다. 융합하는 체험은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영**과 융합하든지, **아들**과 융합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융합한다. **조율사**, 즉 **아버지**와 융합한 자는, 결코 **영**과 융합하거나 **아들**과 융합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필사 피조물이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조율사**가 내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생애 동안에 **조율사**는 그런 존재의 정신 속에서 일하지만, **조율사**가 보호하는 그 혼과 영원히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에,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 속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조율사**는 필사자 본성을 가진 바로 그 영 상대자를--곧 혼을--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필사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조율사**의 업무는 너희 종족 안에서 하는 활동과 전적으로 유사하지만, 필사자가 죽으면, **조율사**는 **영**과 융합할 이 후보자를 영원히 떠나며, 모든 신성한 **관찰자**의 본부인 **디비닝톤**으로 곧바로 가서, 자신이 속한 계층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거기서 기다린다.

그런 잠자는 생존자들이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 될 때, 떠나간 **조율사**의 자리를 **신성한 사역자**의 영의 개별화된 존재가 차지하는데, 그 존재는 관계된 지방우주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 자다. 이 영이 주입{注入}됨으로써, 생존하는 이 피조물은 **영**과 융합된 필사자가 된다. 그런 존재들은, 정신과 영 모든 면에서 너희와 동일하며; 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동기생인데, 너희 계층의 융합 후보자, 그리고 **아들**과 융합될 자들과 더불어, 맨션 및 모른시아 구체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영**과 융합된 필사자는, 상승하는 형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기원된 물질 세계에서 필사자가 가졌던 인간 체험에 대한 추억이 육신의 죽음 후에도 살아남으며, 이는 인간의 생애 중에 영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의 영 사본{寫本}, 즉 이력서{履歷書}를, 내주하는 **조율사**가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과 융합된 필사자에게는 인간의 추억이 존속되는 그런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율사**의 추억 이력서는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획득물은 떠나간 **조율사**의 체험적 소유물이고, 그가 전에 내주했던 피조물에게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그들이 **네바돈**의 모른시아 공간의 부활실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마치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 즉 이전{以前} 실존을 의식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된다.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ey are included in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but they have fused with individualizations of the premind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Such Spirit fusion never occurs during the span of natural life; it takes place only at the time of mortal reawakening in the morontia existence on the mansion worlds. In the fusion experience there is no overlapping; the will creature is either Spirit fused, Son fused, or Father fused. Those who are Adjuster or Father fused are never Spirit or Son fused.

40:9.2 (450.4) The fact that these types of mortal creatures are not Adjuster-fusion candidates does not prevent the Adjusters from indwelling them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djusters do work in the minds of such beings during the span of material life but never become everlastingly one with their pupil souls. During this temporary sojourn the Adjusters effectively build up the same spirit counterpart of mortal nature — the soul — that they do in the candidates for Adjuster fusion. Up to the time of mortal death the work of the Adjusters is wholly akin to their function in your own races, but upon mortal dissolution the Adjusters take eternal leave of these Spirit-fusion candidates and, proceeding directly to Divinington, the headquarters of all divine Monitors, there await the new assignments of their order.

40:9.3 (450.5) When such sleeping survivors are repersonalized on the mansion worlds, the place of the departed Adjuster is filled by an individu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th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This spirit infusion constitutes these surviving creatures Spirit-fused mortals. Such beings are in every way your equals in mind and spirit; and they are indeed your contemporaries, sharing the mansion and morontia spheres in common with your order of fusion candidates and with those who are to be Son fused.

40:9.4 (450.6) There is, however, one particular in which Spirit-fused mortals differ from their ascendant brethren: Mortal memory of human experience on the material worlds of origin survives death in the flesh because the indwelling Adjuster has acquired a spirit counterpart, or transcript, of those events of human life which were of spiritual significance. But with Spirit-fused mortals there exists no such mechanism whereby human memory may persist. The Adjuster transcripts of memory are full and intact, but these acquisitions are experiential possessions of the departed Adjusters and are not available to the creatures of their former indwelling, who therefore awaken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ontia spheres of Nebadon as if they were newly created beings, creatures without consciousness of former existence.

지방우주의 그런 자녀들은, 연합된 스라빔 및 체루빔으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들음으로써,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만든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기록을 초회해 봄으로써, 그것을 회상하여 자신의 이전(以前) 인간 추억 대부분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필사 생애 속에서 체험적으로 기원된 생존하는 혼이, 필사자의 사건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과거의 체험 중에서 기억되지 않는 이 사건들에 대한 체험_인식_반응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과 융합된 필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체험한 사건들에 대해 듣게 될 때, 그런 생존자의 혼(정체성) 안에 즉각적인 체험적 인식 반응이 있고, 그것은 실체를 느끼는 듯한 감정과 사실을 아는 듯한 특성을, 설명들은 사건에 즉시 부여하며; 이 이중(二重) 반응은, 필사자의 체험에서 기억되지 않는 면들을 재구성하고 인식하고 확인하게 한다.

심지어 **조울사** 융합 후보자에게도, 영적 가치를 갖는 인간 체험들만, 생존하는 필사자 및 되돌아오는 **조울사**의 공동 소유물이 되며, 따라서 필사자가 생존한 후에 이를 즉시 회상한다. 영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조울사**와 융합한 이 사람조차, 생존하는 혼 속에서 인식_반응이라는 속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한 필사자에게 영적 함축성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성에서 동시대에 상승한 자들의 집단이, **조울사**가_회상(回想)한 사건들을 저장해서 한곳에 모으고, 이것을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의 생애에서 영적 가치를 가졌던 어떤 체험이라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런 기법을 매우 잘 이해하지만, 어떤 기법으로 인격을 인식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다. 한때 서로 관계를 맺었던 인격체들은 기억 작용과 매우 상관없이 서로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면서 서로 인격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는, 기억 자체 그리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영과 융합된 생존자도 또한, 자신이 살았던 행성 섭리시대 이후에, 자신이 출생했던 세계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육신 속에 살았던 생애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영과** 융합한 그런 자녀는, 일반적으로 지방우주 봉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 생애를 살펴보는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들은 너희처럼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가는 높고 고귀한 운명을 공유하지 않으며; 오직 **조울사**와 융합된 필사자 또는 기타 특별하게 포용된 상승한 존재들만이, **신격**을 찾아가는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는 자들의 반열로 소집된다. **영과**_

40:9.5 (451.1) Such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are enabled to repossess themselves of much of their former human memory experience through having it retold by the associated seraphim and cherubim and by consulting the records of the mortal career filed by the recording angels. This they can do with undoubted assurance because the surviving soul, of experiential origin in the material and mortal life, while having no memory of mortal events, does have a residual experiential-recognition-response to these unremembered events of past experience.

40:9.6 (451.2) When a Spirit-fused mortal is told about the events of the unremembered past experience, there is an immediate response of experiential recognition within the soul (identity) of such a survivor which instantly invests the narrated event with the emotional tinge of reality and with the intellectual quality of fact; and this dual response constitutes the reconstruction, recognition, and validation of an unremembered facet of mortal experience.

40:9.7 (451.3) Even with Adjuster-fusion candidates, only those human experiences which were of spiritual value are common possessions of the surviving mortal and the returning Adjuster and hence are immediately remembered subsequent to mortal survival. Concerning those happenings which were not of spiritual significance, even these Adjuster-fusers must depend upon the attribute of recognition-response in the surviving soul. And since any one event may have a spiritual connotation to one mortal but not to another, it becomes possible for a group of contemporary ascenders from the same planet to pool their store of Adjuster-remembered events and thus to reconstruct any experience which they had in common, and which was of spiritual value in the life of any one of them.

40:9.8 (451.4) While we understand such techniques of memory reconstruction fairly well, we do not grasp the technique of personality recognition. Personalities of onetime association mutually respond quite independently of the operation of memory, albeit, memory itself and the techniques of its reconstruction are necessary to invest such mutual personality response with the fullness of recognition.

40:9.9 (451.5) A Spirit-fused survivor is also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life he lived in the flesh by revisiting his nativity world subsequent to the planetary dispensation in which he lived. Such children of Spirit fusion are enabled to enjoy these opportunities for investigating their human careers since they are in general confined to the service of the local universe. They do not share your high and exalted destiny in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only Adjuster-fused mortals or other especially embraced ascendant beings are

융합된 필사자는 지방우주의 영구 시민이며; **낙원** 운명을 열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네바돈**에서 그들의 우주 고향은, **살빙톤**을 돌고 있는 여덟째 집단의 세계들인데, **유란시아**의 행성에 관한 전승(傳承)들이 상상해서 기록한 그것과 매우 흡사한 본성과 위치를 갖는, 운명이자_천국이다.

10. 상승 운명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과_융합된 필사자는 한 지방우주로 제한되며; **아들**과_융합된 생존자는 한 연방우주로 한정되며; **조울사**와_융합된 필사자는 온갖 우주에 스며들게 돼있다. 필사자와 융합하는 이 영들은 항상 기원된 수준으로 상승하며; 그런 영 실체들은 원래 근원된 구체(球體)로 반드시 돌아간다.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은 지방우주에 속하며; 대개 자신의 출생지 영역 한계를 벗어나서, 즉 그들에게 스며드는 영의 공간 범위 테두리를 벗어나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아들**과_융합된 상승자도 마찬가지로 영(靈)을 부여받은 근원으로 올라가는데, **창조주 아들**의 **진리 영**이, 관련된 **신성한 사역자** 안에 집중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의 “융합하는 영”은 더 높은 우주의 **반사하는 영**들 안에서 효력이 생긴다. 지방우주 수준과 **칠중 하나님**의 연방우주 수준 사이의 그런 영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식별할 수는 있는데, **반사하는 영**들의 자녀--곧 **창조주 아들**의 제2스랍 **소리들**--안에서 틀림없이 드러난다. **낙원**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교 조울사**는, 필사자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마주 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내주하는 **사교 조울사**와 필사 존재가 영원히 융합하지 않거나 융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수, 즉 연합 기법에 있는 불가사의한 변수(變數)가, 상승 요강에서 어떤 결점을 나타낼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아들** 융합과 **영** 융합이, 표면적으로는 **낙원**_달성 계획의 어떤 내용에 설명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보상과 비슷하지만; 그런 모든 결론은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이, **최상 우주 통치자들**이 설립한 법칙에 따라서 펼쳐진다고 배웠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해 왔으며, **창조주 아들**과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이, 더 높은 영역으로 이동 중이던 모든 필사자의 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으므로, 모든 필사자를 궁극적으로 **낙원**에 도달하게 한다면, 시_공간 우주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라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정부가,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영구적인 한 집단을 각각 제공받을 것이라는 점; 이 행정부의 기능이 영구 신분, 즉 어벤돈터들

mustered into the ranks of those who await the eternal Deity adventure. Spirit-fused mortals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may aspire to Paradise destiny, but they cannot be sure of it. In Nebadon their universe home is the eighth group of worlds encircling Salvington, a destiny-heaven of nature and location much like the one envisioned by the planetary traditions of Urantia.

10. ASCENDANT DESTINIES

40:10.1 (452:1) Spirit-fused mortals are, generally speaking, confined to a local universe; Son-fused survivors are restricted to a superuniverse; Adjuster-fused mortals are destined to penetrate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pirits of mortal fusion always ascend to the level of origin; such spirit entities unfailingly return to the sphere of primal source.

40:10.2 (452:2) Spirit-fused mortals are of the local universe; they do not, ordinarily, ascend beyond the confines of their native realm,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pace range of the spirit that pervades them. Son-fused ascenders likewise rise to the source of spirit endowment, for much as the Truth Spirit of a Creator Son focalizes in the associated Divine Minister, so is his “fusion spirit” implemented in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higher universes. Such spirit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may be difficult of explanation but not of discernment, being unmistakably revealed in thos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 the seoraphic Voices of the Creator Sons. The Thought Adjuster, hailing from the Father on Paradise, never stops until the mortal son stands face to face with the eternal God.

40:10.3 (452:3) The mysterious variable in associative technique whereby a mortal being does not or cannot become eternally fused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may seem to disclose a flaw in the ascension scheme; Son and Spirit fusion do, superficially, resemble compensations of unexplained failures in some detail of the Paradise-attainment plan; but all such conclusions stand in error; we are taught that all these happenings unfold in obedience to the established laws of the Supreme Universe Rulers.

40:10.4 (452:4) We have analyzed this problem and have reached the undoubted conclusion that the consignment of all mortals to an ultimate Paradise destiny would be unfair to the time-space universes inasmuch as the courts of the Creator Sons and of the Ancients of Days would then be wholly dependent on the services of those who were in transit to higher realms. And it does seem to be no more than fitting that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should each be

과 수사티아들의 진화 보상에 해당하는 영화롭게 된 필사자로 이뤄진 특정한 집단의 수고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현재의 상승 요강이, 시_공간 행정부에게 바로 그런 상승한 피조물 집단을 효과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며; 우리는 여러 번 경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주 아들들과 태고 항존자들**에게 영구적인 상승한 주민집단을 공급하도록 고안된,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온전히_지혜로운 계획에서 의도된 일부분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다가올 우주 시대들에, 이 영역의 직무를 진척시켜주기에 점점 더 알맞게 될, 진화된 시민 신분의 계층과 함께?

그 필사자 운명이 그렇게 다양한 것은, 누군가가 다른 존재보다 반드시 더 크거나 작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다만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자는 정말로, 완결성취자로서 사는 광대하고 영광스런 생애가, 영원한 미래 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은 상승하는 형제들보다 그들이 우대받는다를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사자를 생존시키는 신성한 계획의 선택적 운영에서 아무런 편애가 없고, 아무 것도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조율사와_융합된 완결성취자는 전체에서 가장 광범하게 봉사할 기회를 명백히 누리는 반면, 이 목표 달성은, 어떤 한 우주 또는 연방우주에서, 비교적 초기의 덜 정착된 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완전해진 비교적 후기의 안정된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걸친 투쟁에 참여할 기회로부터 그들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완결성취자는, 광우주의 일곱 구획 전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신기하고 광범한 체험을 획득하지만, 대개 어떤 한 우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며, 상세한 지식은 지금까지도 **네바돈 완료 단체의 성과**_융합된 노련한 자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천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행성 시대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이 개인들은 상승하는 행렬을 여러 시대에 걸쳐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런 지방우주 시민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집중된 체험으로 발생된 아주 우수한 지혜가--곧 **권위** 있는 지혜가--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체험에 체험이 더해지며, 이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지방우주든지 안정시키는 데 지극히 중대한 요인이다.

영 융합자들의 경우와 같이, **우버사**에서 거주 신분을 획득한,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존재들 가운데 더러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오르본톤** 출신이며, 그들은 통찰력을_강화시키는 지혜를 서서히 축적하는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데, 그 지혜는 일곱째 연방우주의 번영과 종국의 안정에 기여하며, 이런 봉사는 항상_증대된다.

provided with a permanent group of ascendant citizenship; that the functions of these administrations should be enriched by the efforts of certain groups of glorified mortals who are of permanent status, evolutionary complements of the abandoners and of the susatia. Now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present ascension scheme effectively provides the time-space administrations with just such groups of ascendant creatures; and we have many times wondered: Does all this represent an intended part of the all-wis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esigned to provide the Creator Sons and the Ancients of Days with a permanent ascendant population? with evolved orders of citizenship that will become increasingly competent to carry forward the affairs of these realms in the universe ages to come?

40:10.5 (452.5) That mortal destinies do thus vary in no wise proves that one is necessarily greater or lesser than another, merely that they differ. Adjuster-fused ascenders do indeed have a grand and glorious career as finaliters spread out before them in the eternal futur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preferred above their ascendant brethren. There is no favoritism, nothing arbitrary, in the selective operation of the divine plan of mortal survival.

40:10.6 (453.1) While the Adjuster-fused finaliters obviously enjoy the widest service opportunity of all, the attainment of this goal automatically shuts them off from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agelong struggle of some one universe or superuniverse, from the earlier and less settled epochs to the later and established eras of relative perfection attainment. Finaliters acquire a marvelous and far-flung experience of transient service in all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but they do not ordinarily acquire that intimate knowledge of any one universe which even now characterizes the Spirit-fused veterans of the Nebadon Corps of Completion. These individuals enjoy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ascending processional of the planetary ages as they unfold one by one on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And in the faithful service of such local universe citizens, experience superimposes upon experience until the fullness of time ripens that high quality of wisdom which is engendered by focalized experience — *authoritative wisdom* — and this in itself is a vital factor in the settling of any local universe.

40:10.7 (453.2) As it is with the Spirit fusers, so is it with those Son-fused mortals who have achieved residential status on Uversa. Some of these beings hail from the earliest epochs of Orvonton, and they represent a slowly accumulating body of insight-deepening wisdom which is making ever-augmenting service contributions to the welfare and eventual settlemen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시민신분을 지닌 이 상비(常備) 계층의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첫 외부 공간 층의 행성 체계들에서 확장하는 신성(神性) 경계선을 개척하고 있을 때, 진화하여 상승하려고 투쟁하는, **아들**과_융합된, 그리고 **영**과_융합된 자들의 형제들은, 완전하게 된 연방우주들의 체험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기꺼이 공헌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으며, 한편 그들은 과도처럼 **낙원**으로 밀려들어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인데, 그 순례자들은 먼 훗날, 현재는 등록돼 있지 않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외부 공간의 이 성단(星團)들로부터, **영**을_추구하는 거대한 급류처럼, **오르본톤**과 **오르본톤**의 자매 창조계 도처에 쏟아 부어질지도 모른다.

영 융합자 가운데 대부분은 영구히 지방우주 시민으로서 봉사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그들이 우주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국면이 연방우주에서 그들이 직접 나타나기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들을 더 높은 우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변형이 이 시민들에게 일어날 것이며;**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그런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을 출두시키라는 명령서와 함께 **천상의 수호자**들이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상승해서 다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피보호자가 되는데, **낙원** 및 **하보나** 봉사에 차례로 소환되는 작은 숫자를 제외하고, **천상의 수호자**들에게 보좌관으로서 영구히 봉사한다.

영과_융합된 형제들처럼 어떤 변경시키는 변형을 겪지 않는다면, **아들** 융합자들은 **하보나**를 거치지 않고, **낙원**에 도달하지도 않는다. 유익하고 충분한 이유들 때문에, **아들**과_융합된 어떤 생존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며, 너희는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때때로 이 존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와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실제로 **낙원**으로 상승하는데,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여러 면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들은 잠재적 완결성취자이며;그들의 목적지는 **만유의 아버지**이고 그 분께 도달하지만, 현재 우주 시대의 한계 내에서는 그런 완결성취자들은 운명을 달성한 자가 아니다. 그들은 완결되지 않은 피조물로서--곧 여섯째_단계의 영들로서-- 남아 있으며, 따라서 빛과 생명 이전 상태의 진화 영역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필사 완결성취자가 **삼위일체성**을 포함할 때--곧 **강력한 사자** 같은, **삼위일체처럼된 아들이** 될 때--, 그 완결성취자는 적어도 현재 우주 시대에는 운명을 성취했다. **강력한 사자**들과 그 동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곱째_단계 영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다른 것들에 추가하여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 것은, 완결성취자가 일곱째_단계 영으로서

40:10.8 (453.3) What the ultimate destiny of these stationary orders of local and of superuniverse citizenship will be we do not know, but it is quite possible that, when the Paradise finaliters are pioneering the expanding frontiers of divinity in the planetary system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their Son- and Spirit-fused brethren of the ascendant evolutionary struggle will be acceptably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the experiential equilibrium of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while they stand ready to welcome the incoming stream of Paradise pilgrims who may, at that distant day, pour in through Orvonton and its sister creations as a vast spirit-questing torrent from these now uncharted and uninhabited galaxies of outer space.

40:10.9 (453.4) While the majority of Spirit fusers serve permanently as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s, all do not. If some phase of their universe ministry should require their personal presence in the superuniverse, then would such transformations of being be wrought in these citizens as would enable them to ascend to the higher universe; and upon the arrival of the Celestial Guardians with orders to present such Spirit-fused mortals at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would so ascend, never to return. They become wards of the superuniverse, serving as assistants to the Celestial Guardians and permanently, save for those few who are in turn summoned to the service of Paradise and Havona.

40:10.10 (453.5) Like their Spirit-fused brethren, the Son fusers neither traverse Havona nor attain Paradise unless they have undergone certain modifying transformations. For good and sufficient reasons, such changes have been wrought in certain Son-fused survivors, and these beings are to be encountered ever and anon on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us it is that certain numbers of both the Son- and the Spirit-fused mortals do actually ascend to Paradise, do attain a goal in many ways equal to that which awaits the Father-fused mortals.

40:10.11 (453.6) Father-fused mortals are potential finaliters; their destination is the Universal Father, and him they do attain, but within the purview of the present universe age, finaliters, as such, are not destiny attainers. They remain unfinished creatures — sixth-stage spirits — and hence nonactive in the evolutionary domains of prelight-and-life status.

40:10.12 (454.1) When a mortal finaliter is Trinity embraced — becomes a Trinitized Son, such as a Mighty Messenger — then has that finaliter attained destiny, at least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Mighty Messengers and their fellows may not in the exact sense be seventh-stage spirits, but in addition to other things the Trinity embrace

언젠가 성취하게 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수여한다. **영과** 융합되거나 **아들**과 융합된 필사자가 삼자일체된 후에, 그들은 **조을사**와 융합된 상승자들과 함께 **낙원** 체험을 거치는데, 그리되면 연방 우주 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이 상승자들과 똑같다. 현재 완성되지 않은 피조물인 완결성취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 또는 **달성 아들**들은 적어도 현재는 완성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국, 아들신분을 갖는 상승하는 계층들의 운명과 대조해서 “더 크다” 또는 “더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각자는 **하나님**의 부성애{父性愛}를 공유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상승하는 운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듯이, 그런 운명을 달성할 수 있는 피조물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아들 각자를 사랑하시며, 그 애정--곧 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수여된 사랑--은 적어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며 독특하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다른 모든 사실을 완전히 능가한다. 아들신분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맺는 최상의 관계다.

필사자로서, 너희는 이제 신성한 아들신분의 가족 안에서 너희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필사자를 생존시키기 위한 **낙원**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계획으로, 그토록 아낌없이 제공된 이점{利點}들을 적절히 이용해야 할 책무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계획은, 증여된 **아들**이 일생에 겪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증진되고 조명돼왔다. 신성한 완전성이라는 **낙원** 목표를 너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온갖 시설과 모든 능력이 마련돼 왔다.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endows them with everything which a finaliter will sometime achieve as a seventh-stage spirit. After Spirit-fused or Son-fused mortals are trinitized, they pass through the Paradise experience with the Adjuster-fused ascenders, with whom they are then identical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or of Attainment at least for now are finished creatures, in contrast to the finaliters, who are at present unfinished creatures.

40:10.13 (454.2) Thus, in the final analysis, it would be hardly proper to use the words “greater” or “lesser” in contrasting the destinies of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Every such son of God shares the fatherhood of God, and God loves each of his creature sons alike; he is no more a respecter of ascendant destinies than is he of the creatures who may attain such destinies. The Father loves *each* of his sons, and that affection is not less than true, holy, divine, unlimited, eternal, and unique — a love bestowed upon *this* son and upon *that* son, individually, personally, and exclusively. And such a love utterly eclipses all other facts. Sonship is the supreme relationship of the creature to the Creator.

40:10.14 (454.3) As mortals you can now recognize your place in the family of divine sonship and begin to sense the obligation to avail yourselves of the advantages so freely provided in and by the Paradise plan for mortal survival, which plan has been so enhanced and illuminated by the life experience of a bestowal Son. Every facility and all power have been provided for insuring your ultimate attainment of the Paradise goal of divine perfection.

40:10.15 (454.4)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taff of Gabriel of Salvington.]

제41편. 지방우주의 물리적 측면

⇨ 040

유랜시아 책

042 ⇨

II 부. 지방우주

제41편
지방우주의 물리적 측면

섹션

소개

1. 네바돈의 동력 중심
2. 사타니아의 물리 통제관
3. 우리의 이웃 별들
4. 항성 밀도
5. 항성 방사선
6. 칼슘--공간의 떠돌이
7. 항성 에너지의 근원
8. 항성 에너지의 반응
9. 항성의 안정성
10. 인간거주 세계의 기원

소개

모든 다른 창조계로부터 각 지방 창조계를 구별시키는 특유의 공간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적 영**의 현존이다.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의 공간 현존이 **네바돈** 전체에 확실히 스며들어 있으며, 바로 그런 현존은 우리 지방우주의 외부 경계선에서 확실히 차단된다. 우리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네바돈**이며; 그의 공간 현존 너머로 확장하는 그것이 **네바돈** 바깥인데,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네바돈** 바깥 공간 지역들--곧 다른 지방우주들이다.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정부가 뚜렷이 구분돼 있음을 광우주의 경영 조직이 드러내며, 이런 구분은 **하보나**와 일곱 연방우주가 공간에서 분리된 것과 천문적(天文的)으로 일치하지만, 지역 창조계들이 명확한 물리적 경계선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대구역과 소구역들조차 (우리에게는) 분명히 식별될 수 있지만, 지

PAPER 41
PHYSICAL ASPECT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badon Power Centers
2.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3. Our Starry Associates
4. Sun Density
5. Solar Radiation
6. Calcium — The Wanderer of Space
7. Sources of Solar Energy
8. Solar-Energy Reactions
9. Sun Stability
10. Origin of Inhabited Worlds

INTRODUCTION

41:0.1 (455.1) THE characteristic space phenomenon which sets off each local creation from all others is the presence of the Creative Spirit. All Nebadon is certainly pervaded by the spac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and such presence just as certainly terminates at the outer borders of our local universe. That which is pervaded by our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s Nebadon; that which extends beyond her space presence is outside Nebadon, being the extra-Nebadon space region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 other local universes.

41:0.2 (455.2) Whil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grand universe discloses a clear-cut divis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and while these divisions are astronomically paralleled in the space separation of Havona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no such clear lines of physical demarcation set off the local

방우주들의 물리적 경계를 확인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런 지방 창조계가 연방우주의 총 에너지 축적량의 분할을 통제하는 어떤 창조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상으로 조직돼 있는데 반해, 그 물리적 요소, 즉 공간의 구체들--곧 항성들, 흑암 섬들, 행성들, 등--은 1차로 성운{星雲}에서 기원되며, 이 구체들이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어떤 창조_이전(초월적) 계획에 따라서 천문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네바돈이 **앤드로노버** 및 기타 성운의 별과 행성 산물{產物}로부터 물리적으로 조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런 성운이 단 하나의 지방우주 영토에 포함될 수 있다. **네바돈**의 구체들은 다양한 성운 조상에서 생겼지만, 모두 공간 운동의 어떤 최소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간 운동은, 우리의 현재 천체{天體}들의 집합체를 산출할 정도로 동력 지휘자들이 총명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정됐고, 이 천체들은, 연방우주 궤도를 따라 하나의 연속된 단위로서 함께 움직인다.

네바돈의 국지적 별 그룹이 그렇게 구성되는데, 지금은 우리 지방 창조물이 속해 있는, **오르본톤**의 한 소구역에서, **사기타리우스** 중심 주위를 점점 더 안정된 궤도 속에서 회전한다.

1. 네바돈의 동력 중심

나선형 성운{星雲}과 기타 성운들은, 공간에 있는 구체들의 모체{母體} 바퀴들인데, **낙원** 힘 조직가들이 이를 창시했으며; 인력에 반응하여 성운이 진화되고 나서, 동력{動力}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이 그들의 연방우주 기능을 대신하는데, 그 통제관들은 그 결과로 계속해서 생기는 소산물인 별과 행성이 물리적으로 진화하도록 지휘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네바돈**이 생기기_전{前}의_우주에 대한 이 물리적 감독은, 우리의 **창조주 아들**들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의 우주 조직 계획에 즉각 맞춰졌다. **하나님**의 이 **낙원 아들**의 영토 안에서, **최상급 동력 중심**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네바돈**의 다양한 천체를 하나의 통합된 경영 단위가 되도록 견고하게 묶는, 통신 계통, 에너지 회로, 및 동력 통로의 방대한 복합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및 다른 존재들과 협력했다.

넷째 계층의 **최상급 동력 중심** 100명이 우리 지방우주에 영구히 배정돼 있다. 이 존재들은 **우버사**의 셋째_계층 중심들로부터 들어오는 동력

creations. Even the major and minor sectors of Orvonton are (to us) clearly distinguishable, but it is not so easy to identify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local universes. This is because these local creations are administratively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certain *creative* principles governing the segmentation of the total energy charge of a superuniverse, whereas their physical components, the spheres of space — suns, dark islands, planets, etc. — take origin primarily from nebulae, and these make their astronomical appearance in accordance with certain *precreative* (transcendental)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41:0.3 (455.3) One or more — even many — such nebulae may be encompassed within the domain of a single local universe even as Nebadon was physically assembled out of the stellar and planetary progeny of Andronover and other nebulae. The spheres of Nebadon are of diverse nebular ancestry, but they all had a certain minimum commonness of space motion which was so adjusted by the intelligent efforts of the power directors as to produce our present aggregation of space bodies, which travel along together as a contiguous unit over the orbits of the superuniverse.

41:0.4 (455.4) Such is the constitution of the local star cloud of Nebadon, which today swings in an increasingly settled orbit about the Sagittarius center of that minor sector of Orvonton to which our local creation belongs.

1. THE NEBADON POWER CENTERS

41:1.1 (455.5) The spiral and other nebulae, the mother wheels of the spheres of space, are initiated by Paradise force organizers; and following nebular evolution of gravity response, they are superseded in superuniverse function by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who thereupon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directing the physical evolution of the ensuing generations of stellar and planetary offspring. This physical supervision of the Nebadon preuniverse was, upon the arrival of our Creator Son, immediately coordinated with his plan for universe organization. Within the domain of this Paradise Son of God,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collaborated with the later appearing Morontia Power Supervisors and others to produce that vast complex of communication lines, energy circuits, and power lanes which firmly bind the manifold space bodies of Nebadon into one integrated administrative unit.

41:1.2 (456.1) One hundred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fourth order are permanently assigned to our local universe. These beings receive the incoming lines of power from the third-order centers of

계통을 받으며, 약화되고 변경된 회로들을 우리 성과 및 체계 동력 중심에 전달한다. 이 **동력 중심**들은 서로 연합해서, 통제하고 균일화{均一化}시키는 살아있는 체계를 산출하기 위해 활동하며, 이들이 없으면 오르내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계속 균형 잡고 배분하기 위하여 이 체계가 작동한다. 아무튼 동력 중심들은, 항성의 흑점 및 체계의 전기 교란 같은, 일시적이고 국지적{局部的}인 에너지 상승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빛과 전류는 공간의 기본 에너지가 아니고; 2차적으로 그리고 중속적으로 형태화된 것들이다.

100명의 지방우주 중심이 **살빙톤**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들은 그 구체의 정확한 에너지 중심지에서 작동한다. **살빙톤**, **에덴시아**, 및 **예루셈** 같은 건축양식 구체들은, 공간에 있는 항성들로부터 자신을 제법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받고 열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는다.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이 이 구체들을 건설했으며--즉 정돈했으며--, 에너지 분배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고안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그런 초점{焦點}에 활동의 기초를 두면서, 동력 중심들은 자신이 생생하게 현존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에너지의 방향을 잡고 경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 회로들은, 모든 물리적_물질 현상, 그리고 모론시아와 영적 현상의 기초다.

다섯째 계층의 **최상급 동력 중심** 10명이, **네바돈**의 1차 하위구획들, 즉 100개 성좌 각각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너희의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에서 본부 구체에 배치돼 있지는 않지만, 성좌의 물리적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 체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에덴시아**에는, 근처의 동력 중심지들과 완전하고 일정한 접촉을 이루는, 열 명의 연합된 기계적 통제관과 열 명의 후랜달 랭크가 존재한다.

여섯째 계층의 **최상급 동력 중심** 한 명이, 각 지역 체계의 정확한 인력 초점에 배치돼 있다. **사타니아** 체계에서는, 배정된 동력 중심이, 체계의 천문 중심에 위치한 공간 흑암 섬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흑암 섬 가운데 다수는, 어떤 공간_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방향 잡는 거대한 발전기{發電機}이며, **사타니아 동력 중심**이 이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의 살아있는 집단은 비교적 높은 중심들과의 연락원으로서 작용하고, 공간 진화 행성들에서 더 물질화 된 동력의 흐름들로 하여금 **총괄 물리 통제관**들에게로 향하게 한다.

2. 사타니아의 물리 통제관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동력 중심들과 함께 근무하지만, **사타니아** 같은 지역 체계에서 그들의 기능은 더 납득하기 쉽다.

Uversa and relay the down-stepped and modified circuits to the power centers of our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se power centers, in association, function to produce the living system of control and equalization which operates to maintain the balance and distribution of otherwise fluctuating and variable energies. Power centers are not, however, concerned with transient and local energy upheavals, such as sun spots and system electric disturbances; light and electricity are not the basic energies of space; they are secondary and subsidiary manifestations.

41:1.3 (456.2)

The one hundred local universe centers are stationed on Salvington, where they function at the exact energy center of that sphere. Architectural spheres, such as Salvington, Edentia, and Jerusem, are lighted, heated, and energized by methods which make them quite independent of the suns of space. These spheres were constructed — made to order — by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nd were designed to exert a powerful influence over energy distribution. Basing their activities on such focal points of energy control, the power centers, by their living presences, directionize and channelize the physical energies of space. And these energy circuits are basic to all physical-material and morontia-spiritual phenomena.

41:1.4 (456.3)

Ten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fifth order are assigned to each of Nebadon's primary subdivisions,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In Norlatiadek, your constellation, they are not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sphere but are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enormous stellar system which constitutes the physical core of the constellation. On Edentia there are ten associated mechanical controllers and ten frandalanks who are in perfect and constant liaison with the near-by power centers.

41:1.5 (456.4)

One Supreme Power Center of the sixth order is stationed at the exact gravity focus of each local system. In the system of Satania the assigned power center occupies a dark island of space located at the astronomic center of the system. Many of these dark islands are vast dynamos which mobilize and directionize certain space-energies, and these natural circumstances are effectively utilized by the Satania Power Center, whose living mass functions as a liaison with the higher centers, directing the streams of more materialized power to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n the evolutionary planets of space.

2.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41:2.1 (456.5)

While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serve with the power center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ir functions in a local system, such as Satania, are more easy of comprehension.

사타니아는 **노라티아덱** 성좌의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100개 지역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 **샌드마티아**, **아순티아**, **포로기아**, **소르토리아**, **란투리아**, 및 **그란토니아** 체계와 인접해 있다. **노라티아덱**의 체계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사타니아**와 매우 흡사하게 모두 진화하고 진보한다.

사타니아 자체는 7천 개 이상의 천문 집단, 즉 물리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거의 아무것도, 너희 태양계가 기원된 것과 비슷하게 기원되지 않았다. **사타니아** 천문 중심은 거대한 공간 흑암 섬인데, 이것은 거기에 부속된 구체들과 함께, 체계 정부의 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배정된 동력 중심의 현존{現存}을 제외하면, **사타니아**의 전체 물리_에너지 체계에 대한 감독은 **예루셈**에 집중된다. 이 본부 구체에 주둔하는 **총괄 물리 통제관**은, 체계 동력 중심과 협조해서 일하는데, **예루셈**에 본부를 둔 동력 검사관들의 연락 우두머리로서 근무하고, 지역 체계 전역에서 활동한다.

에너지를 순회시키고 흐르게 하는 일은, **사타니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50만 명의 활기차고 지성적인 에너지 조종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하는 동력 중심들은, 그런 물리 통제관들의 행동을 통해서, 상당히 가열된 천체들로부터, 그리고 에너지로_채워진 흑암 구체들로부터 나오는 방사물을 포함해서, 공간의 기본 에너지 대부분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제한다. 이 집단의 살아있는 실체들은, 조직화된 공간의 거의 전체 물리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조종하고, 전달할 수 있다.

생명은, 우주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타고난 능력을 지닌다. 빛이라는 물질 에너지를 식물계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식물 생명체의 작용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식물 에너지가 동물 활동 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지만, 동력 지휘자와 물리 통제관들의 기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공간의 여러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며 방향 잡고 집중{集中}시킬 수 있는 역량을 타고났다.

에너지 영역을 다루는 이 존재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의 구성 요소인 에너지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생리학상 화학작용의 범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생명체의 물리적 예비단계, 즉 기본적인 물질 유기체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위한 물리적 운반수단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공들여 마무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물질 정신이 영적으로 변하기 전의 활동에 보조 정신_영들이 관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atania is one of one hundred local systems which make up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having as immediate neighbors the systems of Sandmatia, Assuntia, Porogia, Sortoria, Rantulia, and Glantonion. The Norlatiadek systems differ in many respects, but all are evolutionary and progressive, very much like Satania.

41:2.2 (457.1) Satania itself is composed of over seven thousand astronomical groups, or physical systems, few of which had an origin similar to that of your solar system. The astronomic center of Satania is an enormous dark island of space which, with its attendant spheres, is situated not far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government.

41:2.3 (457.2) Except for the presence of the assigned power center, the supervision of the entire physical-energy system of Satania is centered on Jerusem. A Master Physical Controller, stationed on this headquarters sphere, works in co-ordination with the system power center, serving as liaison chief of the power inspectors headquartered on Jerusem and functioning throughout the local system.

41:2.4 (457.3) The circuitizing and channelizing of energy is supervised by the five hundred thousand living and intelligent energy manipulators scattered throughout Satania. Through the action of such physical controllers the supervising power centers are in complete and perfect control of a majority of the basic energies of space, including the emanations of highly heated orbs and the dark energy-charged spheres. This group of living entities can mobilize, transform, transmute, manipulate, and transmit nearly all of the physical energies of organized space.

41:2.5 (457.4) Life has inherent capacity for the mobilization and transmutation of universal energy. You are familiar with the action of vegetable life in transforming the material energy of light into the varied manifestations of the vegetable kingdom. You also know something of the method whereby this vegetative energy can be converted into the phenomena of animal activities, but you know practically nothing of the technique of the power directo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who are endowed with ability to mobilize, transform, directionize, and concentrate the manifold energies of space.

41:2.6 (457.5) These beings of the energy realms do not directly concern themselves with energy as a component factor of living creatures, not even with the domain of physiological chemistry. They are sometimes concerned with the physical preliminaries of life, with the elaboration of those energy systems which may serve as the physical vehicles for the living energies of elementary material organisms. In a way the physical

로, 어떤 면에서 물리 통제관들은 물질 에너지가 활력을 얻기 이전의 형태화에 관련된다.

동력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이 총명한 피조물은, 각 행성의 물리적 체질과 구조에 따라서, 각 구체에 자신의 기법을 맞춰야 한다. 그들 각자의 물리학자, 참모진, 및 기타 기술 충고자들이, 심하게 가열된 항성들 그리고 기타 유형의 극도로 대전(帶電)된 별들의 국지적 영향에 관해 계산하고 추론한 것을, 그들은 어김없이 활용한다. 공간에 있는 극도로 차갑고 어두운 거대한 별들, 그리고 때 지어 모여드는 별 먼지 구름도 계산에 넣어야 하며; 이런 물질적인 것들 전체는, 에너지를 조종하는 실제 문제에 관련돼 있다.

진화하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동력_에너지를 감독하는 일은 **총괄 물리 통제관**의 책임이지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부작용은 이 존재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교란 현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는 물리적 관리인들의 범위와 통제를 벗어난다. **유란시아**는 여러 분야의 엄청난 에너지 속에 있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회로에 있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며, 지방 통제관들은 때때로 여러 분야의 이 에너지를 평형시키려고 애쓰면서, 그들 계층에 속하는 수많은 존재를 활용한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리적 회로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하지만, 강력한 **노라티아덱** 흐름을 차단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우리의 이웃 별들

사타니아에서는 2,000개 이상의 찬란한 항성이 빛과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너희의 태양은 평범한 타오르는 천체(天體)다.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30개 항성 중에서 세 개만이 더 밝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각각의 별과 그 별의 각 체계 사이에서 작용하는 특화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킨다. 이 항성 용광로들은, 거대한 공간 흑암 물체들과 함께, 물질 창조계의 에너지 회로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고 방향 잡기 위한 중간지점으로서,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을 돕는다.

네바돈의 항성들은 다른 우주들의 항성과 다르지 않다. 항성, 흑암 섬, 행성, 및 위성들 전체는 물론 유성들도, 물질 구성이 상당히 동일하다. 이 항성들은 직경이 평균 100만 마일에 달하는데, 너희의 태양 천체는 그것보다 약간 작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인, 별빛 구름 **안타레스**는, 너희의 태양 지름의 450배에 달하고 부피는 6천만 배다. 그러나 이 거대한 항성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만일 12개의 감풀이 **유란시아** 내부 전역에서 돌고 있고, 이 행성이 텅 빈 공이라면, 그 감풀들이 갖게 됐을 정도에 상당하는 공간적

controllers are related to the preliving manifestations of material energy as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concerned with the prespiritual functions of material mind.

41:2.7 (457.6) These intelligent creatures of power control and energy direction must adjust their technique on each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physical constitution and architecture of that planet. They unfailingly utilize the calculations and deductions of their respective staffs of physicists and other technical advisers regarding the local influence of highly heated suns and other types of supercharged stars. Even the enormous cold and dark giants of space and the swarming clouds of star dust must be reckoned with; all of these material things are concerned in the practical problems of energy manipulation.

41:2.8 (457.7) The power-energy supervision of the evolutionary inhabited world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but these beings are not responsible for all energy misbehavior on Urantia.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such disturbances, some of which are beyond the domain and control of the physical custodians. Urantia is in the lines of tremendous energies, a small planet in the circuit of enormous masses, and the local controllers sometimes employ enormous numbers of their order in an effort to equalize these lines of energy. They do fairly well with regard to the physical circuits of Satania but have trouble insulating against the powerful Norlatiadek currents.

3. OUR STARRY ASSOCIATES

41:3.1 (458.1) There are upward of two thousand brilliant suns pouring forth light and energy in Satania, and your own sun is an average blazing orb. Of the thirty suns nearest yours, only three are brighter.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initiate the specialized currents of energy which play between the individual stars and their respective systems. These solar furnaces, together with the dark giants of space, serve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s way stations for the effective concentrating and directionizing of the energy circuits of the material creations.

41:3.2 (458.2) The suns of Nebadon are not unlike those of other universes. The material composition of all suns, dark islands, planets, and satellites, even meteors, is quite identical. These suns have an average diameter of about one million miles, that of your own solar orb being slightly less. The largest star in the universe, the stellar cloud Antares, is four hundred and fifty times the diameter of your sun and is sixty million times its volume. But there is abundant space to accommodate all of these enormous suns. They have just as much comparative elbow room in

여유를, 이 거대한 항성들이 갖고 있다.

너무 큰 항성이 성운 모체 바퀴에서 벗어나면, 곧 부서지거나, 아니면 한 쌍의 별을 형성한다. 비록 나중에 일시적으로 약간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더라도, 모든 항성은 원래 완전한 기체 상태다. 너희의 태양이 초월기체{超越氣體} 압력을 가진 이런 유사{類似}_액체 상태를 달성했을 때, 만으로 갈라지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어떤 유형의 2중 별이 형성된다.

너희 태양의 10분의 1보다 작아질 때, 불타는 이 구체들은 급속도로 수축되고 압축되며 냉각된다. 그 크기가 30배--오히려 실제 물질 총 내용물의 30배--이상이 될 때, 항성은 즉시 두 개의 개별 본체로 나뉘는데, 새로운 체계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의 인력 지배 범위 안에 남아서, 이중{二重} 별의 한 유형으로서, 공통된 중심 주위를 회전한다.

오르본톤에서 주요 시공우주 폭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은, 보통과는 다른 한 쌍의 별이 탄생되는 폭발이었는데, 그 빛이 서기 1572년에 **유란시아**에 도달했다. 이 빛은 너무 강렬해서 환한 대낮에도 분명히 관측될 수 있었다.

별들이 전부 고체 상태는 아니지만, 오래된 많은 별이 고체 상태다. 붉은 빛을 띤, 희미하게 깜박이는 어떤 별들은, 그 거대한 덩어리의 중심에서, 만일 **유란시아**에서 무게를 잰다면 그런 별의 1 입방 인치가 6천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표현될 만한 밀도에 도달했다. 그 거대한 압력은 결과적으로, 열 손실과 순환하는 에너지로 인해, 이제 전자{電子}가 응축되는 상태에 근접할 때까지, 기본 물질 단위의 궤도들이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이런 냉각 및 응축 과정은, 결정적인 궁극체{窮極體} 응축 임계 폭발 지점까지 계속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대한 항성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대부분의 작은 별은 오래된 것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 충돌하는 작은 별들은 아주 젊을 수 있고, 강한 흰 빛을 내면서 이글거릴 수도 있는데, 젊게 빛나는 초기의 붉은 빛 단계는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다. 매우 젊은 항성들과 매우 늙은 항성들은 모두, 대개 붉은 색을 띠면서 빛난다. 노란 색조는 중간 정도로 젊거나 노년기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찬란한 흰 빛은 튼튼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년기 생애에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기 항성들 전체가 정확하게 고동치는 단계를 지나가지는 않는데, 적어도 눈에 띄게 그렇지 않은 반면, 우주 바깥쪽을 바라볼 때, 너희는 거대한 호흡 용기가 한 주기를 완성하기에 2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비교적 젊은 이런 별을 많이 관측할 수 있다. 너희의 태양은 젊은 시절에 강력하게 부풀어 오름으로 생긴 후유증을, 줄어들기는

space as one dozen oranges would have if they were circulating about throughout the interior of Urantia, and were the planet a hollow globe.

41:3.3 (458.3) When suns that are too large are thrown off a nebular mother wheel, they soon break up or form double stars. All suns are originally truly gaseous, though they may later transiently exist in a semiliquid state. When your sun attained this quasi-liquid state of supergas pressure, it was not sufficiently large to split equatorially, this being one type of double star formation.

41:3.4 (458.4) When less than one tenth the size of your sun, these fiery spheres rapidly contract, condense, and cool. When upwards of thirty times its size — rather thirty times the gross content of actual material — suns readily split into two separate bodies, either becoming the centers of new systems or else remaining in each other's gravity grasp and revolving about a common center as one type of double star.

41:3.5 (458.5) The most recent of the major cosmic eruptions in Orvonton was the extraordinary double star explosion, the light of which reached Urantia in A.D. 1572. This conflagration was so intense that the explosion was clearly visible in broad daylight.

41:3.6 (458.6) Not all stars are solid, but many of the older ones are. Some of the reddish, faintly glimmering stars have acquired a density at the center of their enormous masses which would be expressed by saying that one cubic inch of such a star, if on Urantia, would weigh six thousand pounds. The enormous pressure, accompanied by loss of heat and circulating energy, has resulted in bringing the orbits of the basic material units closer and closer together until they now closely approach the status of electronic condensation. This process of cooling and contraction may continue to the limiting and critical explosion point of ultimatic condensation.

41:3.7 (459.1) Most of the giant suns are relatively young; most of the dwarf stars are old, but not all. The collisional dwarfs may be very young and may glow with an intense white light, never having known an initial red stage of youthful shining. Both very young and very old suns usually shine with a reddish glow. The yellow tinge indicates moderate youth or approaching old age, but the brilliant white light signifies robust and extended adult life.

41:3.8 (459.2) While all adolescent suns do not pass through a pulsating stage, at least not visibly, when looking out into space you may observe many of these younger stars whose gigantic respiratory heaves require from two to seven days to complete a cycle. Your own sun still carries a diminishing legacy of the mighty upswellings of its

했어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기간은 이전에 3.5 일마다 맥동하던 것에서, 현재는 11.5년의 태양흑점 주기로 길어졌다.

변광성(變光星)들은 수많은 기원을 갖는다. 어떤 이중의 별에서는 두 본체가 자기 궤도를 돌 때, 거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조류(潮流)가 일어나고, 또한 주기적 광선 파동이 생긴다. 이 인력 변동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불꽃 현상을 일으키는 데, 이것은 마치 그 표면에서 에너지-물질의 증가로 운석 흡인이 비교적 갑작스런 섬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섬광은 그 항성의 정상적인 밝기로 급격히 줄어든다. 때때로 항성은 약화된 인력 저항과 일치하는 한 줄기의 운석들을 흡인하며, 가끔 별 모양의 섬광을 만드는 충돌이 일어나게 하지만, 그런 현상 대부분은 전적으로 내부의 변동 때문이다.

하나의 변광성 집단에서 빛 파동 기간은, 광도(光度)에 따라 직접 좌우되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그런 항성을 우주 등대(燈臺)로 활용하거나, 멀리 있는 별 집단들에 대한 더 앞서는 탐구를 위한 정확한 측량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으로, 백만 광년이 넘기까지 별들 사이의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공간 측정을 위한 더 나은 방법과 개선된 망원경 기법이, 언젠가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것이며, 너희는 이 광대한 구역 중에서 적어도 여덟 개에 대해서는, 거대하고 그런대로 균형 잡힌 별 다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4. 항성 밀도

너희 태양의 질량은, 약 2옥틸리언(2 곱하기 10의 27승)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너희 물리학자들의 측정치보다 약간 크다. 그것은 현재 가장 조밀한 별과 가장 이완된 별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데, 물보다 약 1.5배의 밀도다. 그러나 너희의 태양은 액체가 아니고 고체도 아니며--즉 기체 상태이며--, 기체 상태의 물체가 어떻게 이런 밀도,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사실이다.

기체, 액체, 및 고체 상태는 원자와 분자 관계의 문제이지만, 밀도는 공간과 질량의 관계다. 밀도는 공간에서 물체의 양에 정비례로 변하고, 물체 속의 공간 부피에는 반비례로 변하는데, 이 공간은 물체의 중앙 핵심과 이 중심을 도는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며, 그런 물질 입자들 안에 있는 공간이다.

식어가는 별들은 물리적으로 기체상태이고, 크게 농축돼 있을 수 있다. 너희는 항성의 초월기체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비롯해 다른 비정상 물질 형태를 보면, 심지어 고체가 아닌

younger days, but the period has lengthened from the former three and one-half day pulsations to the present eleven and one-half year sunspot cycles.

41:3.9 (459.3) Stellar variables have numerous origins. In some double stars the tides caused by rapidly changing distances as the two bodies swing around their orbits also occasion periodic fluctuations of light. These gravity variations produce regular and recurrent flares, just as the capture of meteors by the accretion of energy-material at the surface would result in a comparatively sudden flash of light which would speedily recede to normal brightness for that sun. Sometimes a sun will capture a stream of meteors in a line of lessened gravity opposition, and occasionally collisions cause stellar flare-ups, but the majority of such phenomena are wholly due to internal fluctuations.

41:3.10 (459.4) In one group of variable stars the period of light fluctuation is directly dependent on luminosity, and knowledge of this fact enables astronomers to utilize such stars as universe lighthouses or accurate measuring points for the further exploration of distant star clusters. By this technique it is possible to measure stellar distances most precisely up to more than one million light-years. Better methods of space measurement and improved telescopic technique will sometime more fully disclose the ten grand division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you will at least recognize eight of these immense sectors as enormous and fairly symmetrical star clusters.

4. SUN DENSITY

41:4.1 (459.5) The mass of your sun is slightly greater than the estimate of your physicists, who have reckoned it as about two octillion (2×10^{27}) tons. It now exists about halfway between the most dense and the most diffuse stars, having about one and one-half times the density of water. But your sun is neither a liquid nor a solid — it is gaseous — and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explaining how gaseous matter can attain this and even much greater densities.

41:4.2 (459.6) Gaseous, liquid, and solid states are matters of atomic-molecular relationships, but density is a relationship of space and mass. Density varies directly with the quantity of mass in space and inversely with the amount of space in mass, the space between the central cores of matter and the particles which whirl around these centers as well as the space within such material particles.

41:4.3 (459.7) Cooling stars can be physically gaseous and tremendously dense at the same tim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solar *supergases*, but these and other unusual forms of

항성들이 쇠와 비슷한--곧 **유란시아**와 거의 동일한-- 밀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게다가 심하게 가열된 기체 상태에 있으면서도 항성으로서 계속 작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농축된 이 초월기체 속의 원자들은 유난히 작으며, 약간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 항성들은 또한 자유로운 궁극체의 에너지 비축량을 크게 상실했다.

너희의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으로 탄생된, 너희 가까이 있는 항성들 가운데 하나는, 현재 **유란시아** 크기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수축됐는데, 너희의 태양보다 4만 배에 해당하는 밀도가 돼가고 있다. 뜨거운_기체이자 차가운_고체인 이것의 무게는 1입방 인치당 1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항성은 여전히 희미한 붉은 광채로 빛나는데, 죽어가는 빛의 제왕(帝王)이 발산하는, 노쇠한 가물거리는 빛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성은 그렇게 밀도가 크지 않다. 너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의 해수면(海水面) 대기와 아주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다. 너희가 이 항성 내부에 있다면,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허락한다면, 너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항성 대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거실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오르본톤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인 **베룬티아**라는 거대한 항성은, **유란시아** 대기 밀도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이 너희의 대기과 비슷하고 심하게 가열된 성질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그 속에 또는 그 위에 있게 될 때 곧 숨 막힐 정도의 그런 진공상태일 것이다.

오르본톤에 있는 다른 거대한 항성들은 현재 3천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다. 그 직경은 3억 마일보다 크다--곧 너희의 태양과 지구의 현재 궤도를 수용할만한 거대한 공간이다. 그렇지만, 너희의 태양보다 4천만 배 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질량은 오직 30배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이 항성들의 외변(外邊)은, 한 항성에서 다른 항성에 도달할 정도로 확장한다.

5. 항성 방사선

공간에 있는 항성들이 매우 조밀하지는 않다는 사실은, 탈출하는 빛_에너지가 안정되게 흐르는 것으로 증명된다. 밀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빛_에너지 압력이 폭발점에 이를 때까지, 부전도성{不傳導性}으로 빛을 억압시킬 것이다. 항성 안에는, 대량의 에너지, 빛, 및 열을,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에게 공급하기까지 수백만 마일의 공간을 통과할 만큼, 대량의 에너지를 쏟아내게 하는 엄청난 빛 또는 기체 압력이 있다. 원자핵분열의 결과로 축적되는 에너지의 증가되는 내부 압력이 바깥으로 무시무시하게 폭발해서 인력을 압도할 때까지, **유란시아**의 밀도를 가진 15피트 두께의 표

matter explain how even nonsolid suns can attain a density equal to iron — about the same as Urantia — and yet be in a highly heated gaseous state and continue to function as suns. The atoms in these dense supergases are exceptionally small; they contain few electrons. Such suns have also largely lost their free ultimatonic stores of energy.

41:4.4 (460.1) One of your near-by suns, which started life with about the same mass as yours, has now contracted almost to the size of Urantia, having become forty thousand times as dense as your sun. The weight of this hot-cold gaseous-solid is about one ton per cubic inch. And still this sun shines with a faint reddish glow, the senile glimmer of a dying monarch of light.

41:4.5 (460.2) Most of the suns, however, are not so dense. One of your nearer neighbors has a density exactly equal to that of your atmosphere at sea level. If you were in the interior of this sun, you would be unable to discern anything. And temperature permitting, you could penetrate the majority of the suns which twinkle in the night sky and notice no more matter than you perceive in the air of your earthly living rooms.

41:4.6 (460.3) The massive sun of Veluntia, one of the largest in Orvonton, has a density only one one-thousandth that of Urantia's atmosphere. Were it in composition similar to your atmosphere and not superheated, it would be such a vacuum that human beings would speedily suffocate if they were in or on it.

41:4.7 (460.4) Another of the Orvonton giants now has a surface temperature a trifle under three thousand degrees. Its diameter is over three hundred million miles — ample room to accommodate your sun and the present orbit of the earth. And yet, for all this enormous size, over forty million times that of your sun, its mass is only about thirty times greater. These enormous suns have an extending fringe that reaches almost from one to the other.

5. SOLAR RADIATION

41:5.1 (460.5) That the suns of space are not very dense is proved by the steady streams of escaping light-energies. Too great a density would retain light by opacity until the light-energy pressure reached the explosion point. There is a tremendous light or gas pressure within a sun to cause it to shoot forth such a stream of energy as to penetrate space for millions upon millions of miles to energize, light, and heat the distant planets. Fifteen feet of surface of the density of Urantia would effectually prevent the escape of all X rays and light-energies from a sun until the rising

면이, 모든 X 광선과 빛_에너지가 항성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다.

빛은, 추진력 있는 기체들이 현존하는 가운데, 높은 온도에서 불투명한 차단 벽에 갇히게 될 때 큰 폭발력을 갖는다. 빛은 실재한다. 너희 세계에서 에너지와 동력에 가치를 부여하듯이, 태양광은 한 파운드당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너희 태양의 내부는 거대한 X_광선 발생기다. 항성들은 이런 강력한 방사물을 끊임없이 퍼부어냄으로써 내부로부터 힘을 얻는다.

평범한 항성의 중심점에서 항성 표면에 이르기까지, X_광선으로 자극된 전자{電子}가 고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데는 약 50만 년 이상 소요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전자는 우주 모험을 시작해서, 인간 거주 행성을 따뜻하게 하거나, 운석에 흡수되거나, 어떤 원자의 탄생에 참여하거나, 공간에 있는 심하게 축적된 흑암 섬에 흡수되거나, 또는 그것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어떤 항성의 표면 속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우주 비행을 끝낸다.

항성의 내부 X 광선은, 고도로 가열되고 동요된 전자들을 충분한 에너지로 축적하여, 공간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끼어드는 물질의 억류하는 영향력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력 흡수작용에도, 외판 체계의 먼 구체에 이르기까지 운반한다. 항성 인력 속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를 갖는 엄청난 에너지는, 항성광선이 상당히 큰 물질 덩어리에 부딪치게 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속도로 여행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며; 그렇게 부딪친 후에는 다른 에너지를 배출하면서 급속도로 열로 변환된다.

에너지는, 빛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지, 공간을 통과해 날아갈 때 직진해서 움직인다. 물질 실존의 실제 입자들은 연발{連發}하는 형태로 공간을 지나간다. 초월적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낙원 섬**의 순환_인력{引力} 현존과 물질 질량에 내재하는 직선_인력 흡인력에 계속 반응하는 경우 외에는, 이 입자들은 똑바르고 연속적인 선 또는 행렬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항성 에너지는 마치 파동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공존하는 다양한 영향의 작용 때문이다. 일정한 형태의 조직된 에너지는, 파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진행한다. 힘_에너지의 둘째 또는 셋째 형태의 현존은, 관측되는 흐름이 파도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강력한 바람과 함께 동반되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풍우 속에서 빗방울이 어떤 때에는 평면을 이루며 떨어지는 것처럼, 또는 파도치며 내리는 것처럼 보임과 똑같다. 빗방울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는 직선 형태로 떨어지지만, 바람의 작용이 빗방울로 하여금 평면의 물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internal pressure of accumulating energies resulting from atomic dismemberment overcame gravity with a tremendous outward explosion.

41:5.2 (460.6) Light, in the presence of the propulsive gases, is highly explosive when confined at high temperatures by opaque retaining walls. Light is real. As you value energy and power on your world, sunlight would be economical at a million dollars a pound.

41:5.3 (460.7) The interior of your sun is a vast X-ray generator. The suns are supported from within by the incessant bombardment of these mighty emanations.

41:5.4 (460.8) It requires more than one-half million years for an X-ray-stimulated electron to work its way from the very center of an average sun up to the solar surface, whence it starts out on its space adventure, maybe to warm an inhabited planet, to be captured by a meteor, to participate in the birth of an atom, to be attracted by a highly charged dark island of space, or to find its space flight terminated by a final plunge into the surface of a sun similar to the one of its origin.

41:5.5 (461.1) The X rays of a sun's interior charge the highly heated and agitated electrons with sufficient energy to carry them out through space, past the hosts of detaining influences of intervening matter and, in spite of divergent gravity attractions, on to the distant spheres of the remote systems. The great energy of velocity required to escape the gravity clutch of a sun is sufficient to insure that the sunbeam will travel on with unabated velocity until it encounters considerable masses of matter; whereupon it is quickly transformed into heat with the liberation of other energies.

41:5.6 (461.2) Energy, whether as light or in other forms, in its flight through space moves straight forward. The actual particles of material existence traverse space like a fusillade. They go in a straight and unbroken line or procession except as they are acted on by superior forces, and except as they ever obey the linear-gravity pull inherent in material mass and the circular-gravity presence of the Isle of Paradise.

41:5.7 (461.3) Solar energy may seem to be propelled in waves, but that is due to the action of coexistent and diverse influences. A given form of organized energy does not proceed in waves but in direct lines. The presence of a second or a third form of force-energy may cause the stream under observation to appear to travel in wavy formation, just as, in a blinding rainstorm accompanied by a heavy wind, the water sometimes appears to fall in sheets or to descend in waves. The raindrops are coming down in a direct line of unbroken procession, but the action of the wind is such as to give the visible appearance of sheets of water and

너희 지방우주 공간 범위에 현존하는, 특정한 2차 에너지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의 작용은, 항성_광선의 발산을 일정한 길이와 무게를 갖는 극미한 부분들로 나눌 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치는 현상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너희는 **네바돈** 공간 지역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공간_세력 및 항성 에너지의 상호작용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획득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는, 빛의 행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를 거의 희망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동은,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 문제가 총괄우주의 인격적 및 비인격적 통제와 상호연합 활동과--곧 **공동 행위자**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 실행, 및 협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6. 칼슘--공간의 떠돌이

분광{分光} 현상을 해독할 때,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그리고 공간을 지나가는 그 빛은, 조직된 모든 공간 속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다양한 형태로 말미암아, 때로 약간씩 변경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 태양의 분광현상에서 나타나는,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표시하는 계통 가운데 더러는, 분산된 형태로 우주 전반에 걸쳐 떠다니고 있는, 잘 알려진 원소들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이 원소들은 항성 원소 사이의 전투에서 맹렬한 충돌로 희생되는 원자다. 공간은 이런 떠돌아다니는 낙오자들, 특히 나트륨과 칼슘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칼슘은 **오르본톤** 전역에서 공간을 물질로 채우는 주요 요소다. 우리의 연방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분쇄되는 석영으로 뿌려져 있다. 석영은, 공간에 있는 행성과 구체들에게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건축 재료다. 거대한 우주 담요인 시공 우주 구름은, 칼슘의 변경된 원자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석영 원자는 원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불변적인 것 가운데 하나다. 석영 원자는 항성 이온화를--곧 분리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X 광선들로 인해 분쇄되고, 높은 항성 온도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후에도, 결합하는 본성을 유지한다. 칼슘은 비교적 일반적인 물질 형태 전체를 능가하는, 개체성과 긴 수명을 갖고 있다.

너희 물리학자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항성 칼슘이라는, 불구{不具}가 된 이 잔존물은, 글자 그대로 다양한 간격으로 광선을 타고 가며, 그리하여 칼슘이 공간에 두루 산포되도록 엄청나게 촉진시켰다. 나트륨 원자는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역시 빛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칼슘의 공로가 훨씬 더 놀랄만한 이유는, 이 원소가 나

waves of raindrops.

41:5.8 (461.4) The action of certain secondary and other undiscovered energies present in the space regions of your local universe is such that solar-light emanations appear to execute certain wavy phenomena as well as to be chopped up into infinitesimal portions of definite length and weight. And, practically considered, that is exactly what happens. You can hardly hope to arrive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light until such a time as you acquire a clearer concept of the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various space-forces and solar energies operating in the space regions of Nebadon. Your present confusion is also due to your incomplete grasp of this problem as it involves the interassociated activities of the personal and nonpersonal control of the master universe — the presences, the performances, and the co-ordination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qualified Absolute.

6. CALCIUM — THE WANDERER OF SPACE

41:6.1 (461.5) In deciphering spectral phenomena,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pace is not empty; that light, in traversing space, is sometimes slightly modified by the various forms of energy and matter which circulate in all organized space. Some of the lines indicating unknown matter which appear in the spectra of your sun are due to modifications of well-known elements which are floating throughout space in shattered form, the atomic casualties of the fierce encounters of the solar elemental battles. Space is pervaded by these wandering derelicts, especially sodium and calcium.

41:6.2 (461.6) Calcium is, in fact, the chief element of the matter-permeation of space throughout Orvonton. Our whole superuniverse is sprinkled with minutely pulverized stone. Stone is literally the basic building matter for the planets and spheres of space. The cosmic cloud, the great space blanket, consists for the most part of the modified atoms of calcium. The stone atom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and persistent of the elements. It not only endures solar ionization — splitting — but persists in an associative identity even after it has been battered by the destructive X rays and shattered by the high solar temperatures. Calcium possesses an individuality and a longevity exceeding all of the more common forms of matter.

41:6.3 (462.1) As your physicists have suspected, these mutilated remnants of solar calcium literally ride the light beams for varied distances, and thus their widespread dissemination throughout space is tremendously facilitated. The sodium atom, under certain modifications, is also capable of light and energy locomotion. The calcium feat is all the more remarkable since this element has almost

트륨보다 거의 두 배의 질량을 갖기 때문이다. 칼슘이 국지적인 공간에 침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탈출하는 항성광선에 올라탔으로써, 변경된 형태 속에서 항성 광구{光球}로부터 탈출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체 항성 원소 중에서 칼슘은 -- 20 개의 회전하는 전자를 포함하다시피 -- 비교적 부피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항성 내부로부터 공간 영역으로 탈출한다. 이것은, 기체 상태의 돌 껍질인 칼슘층이 항성 위에 6천 마일 두께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비교적 가벼운 19 개의 원소 및 비교적 무거운 수많은 원소가 그 밑에 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칼슘은 항성 온도에서 활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원소다. 석영 원자는 두 개의 바깥쪽 전자 궤도에, 회전이 빠르고 느슨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매우 근접해 있다. 원자가 격변하는 초기부터, 석영 원자는 바깥쪽 전자를 잃어버리며;그에 따라, 열아홉 번째 전자가 열아홉 번째와 스무 번째 전자 회전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멋대로의 요술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 전자 자체의 궤도와 잃어버린 동무의 궤도 사이를 매초 25,000번씩 왔다 갔다 하도록, 이 열아홉 번째 전자를 내던짐으로써, 불구가 된 석영 원자는 인력을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떠오르는 빛과 에너지의 흐름, 즉 항성광선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면서 자유롭게 모험을 떠나게 된다. 이 칼슘 원자는, 매초 25,000번 항성광선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교류 진동으로, 앞쪽으로 추진하여 밖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왜 석영이 공간에 있는 세계들의 주요 요소인지, 설명해 준다. 칼슘은 가장 유능한 항성_감옥 탈옥수다.

제주 부리는 이 칼슘 전자의 민첩성은, 고열_X_광선의 항성 세력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높은 궤도 원주로 던져질 때, 그 전자가 1초의 약 100만분의 1 동안만 그 궤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지만;원자 핵의 전기와 인력의 위력이 전자를 그 옛 궤도 속으로 잡아당기기 전에, 그 전자는 원자 중심을 백만 번 회전할 수 있다.

너희의 태양은 많은 양의 칼슘을 내뿜어 왔는데, 태양계의 형성과 관련된 급작스런 폭발이 있는 동안, 엄청난 양을 방출했다. 태양 칼슘의 상당 부분은 지금 태양의 바깥쪽 껍질 속에 있다.

분광{分光} 분석은 오직 항성_표면 구성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태양 분광은 철{鐵} 계통을 많이 나타내지만, 철은 태양에서 주요 원소가 아니다. 이 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태양 표면의 현재 온도 때문인데, 그 온도는 6,000도를 약간 밑돌며, 철 분광이 등록되기에 아주 적합하다.

twice the mass of sodium. Local space-permeation by calcium is due to the fact that it escapes from the solar photosphere, in modified form, by literally riding the outgoing sunbeams. Of all the solar elements, calcium, notwithstanding its comparative bulk — containing as it does twenty revolving electrons — is the most successful in escaping from the solar interior to the realms of space. This explains why there is a calcium layer, a gaseous stone surface, on the sun six thousand miles thick; and this despite the fact that nineteen lighter elements, and numerous heavier ones, are underneath.

41:6.4 (462.2) Calcium is an active and versatile element at solar temperatures. The stone atom has two agile and loosely attached electrons in the two outer electronic circuits, which are very close together. Early in the atomic struggle it loses its outer electron; whereupon it engages in a masterful act of juggling the nineteenth electron back and forth betwee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ircuits of electronic revolution. By tossing this nineteenth electron back and forth between its own orbit and that of its lost companion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times a second, a mutilated stone atom is able partially to defy gravity and thus successfully to ride the emerging streams of light and energy, the sunbeams, to liberty and adventure. This calcium atom moves outward by alternate jerks of forward propulsion, grasping and letting go the sunbeam about twenty-five thousand times each second. And this is why stone is the chief component of the worlds of space. Calcium is the most expert solar-prison escaper.

41:6.5 (462.3) The agility of this acrobatic calcium electron is indicated by the fact that, when tossed by the temperature-X-ray solar forces to the circle of the higher orbit, it only remains in that orbit for about one one-millionth of a second; but before the electric-gravity power of the atomic nucleus pulls it back into its old orbit, it is able to complete one million revolutions about the atomic center.

41:6.6 (462.4) Your sun has parted with an enormous quantity of its calcium, having lost tremendous amounts during the times of its convulsive erup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 Much of the solar calcium is now in the outer crust of the sun.

41:6.7 (462.5)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pectral analyses show only sun-surface compositions. For example: Solar spectra exhibit many iron lines, but iron is not the chief element in the sun. This phenomenon is almost wholly due to the present temperature of the sun's surface, a little less than 6,000 degrees, this temperature being very favorable to the registry of the iron spectrum.

7. 항성 에너지의 근원

너희의 태양은 물론, 많은 항성의 내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어떤 항성 내부에는 온전한 원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원자들은 모두, 그런 높은 온도에 고유하게 있는 강한 X-광선 충격 때문에 다소 분쇄돼 있다. 항성의 비교적 바깥층들에서 무슨 물질 원소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원소들은 파괴적인 X-광선의 분열 작용으로 인해 매우 비슷하게 된다. X-광선은 원자의 실존을 평준화시키는 대단한 도구다.

너희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르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중앙 지점에서는 약 3,500만 도에 이르는 믿을 수 없는 고온을 갖는다. (이 모든 온도는 화씨 단위에 기준한 것이다.)

이런 모든 현상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암시하며, 항성 에너지 근원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의 소멸, 그리고 결국에는 전자의 소멸.
2. 이렇게 해방된 방사성 에너지 집단을 포함한, 원소들의 변질.
3. 어떤 우주의 공간_에너지를 축적함과 전달함.
4. 타오르는 항성 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공간 물질 및 운석.
5. 항성의 수축; 공간 물질이 공급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와 열을 산출하는 항성의 냉각과 그에 따른 수축.
6. 순환된 어떤 힘을 방사성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온(高溫)의 인력 작용.

7. 항성 체계 밖에서 기원된 다른 에너지들을 포함해서, 항성을 떠난 후에 다시 그 속으로 이끌리는 회수된 빛과 기타 물질.

(때로는 수백만 도에 이르는) 뜨거운 기체로 된 조질 막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항성을 감싸고, 열 손실을 안정시키도록 작용하며, 그밖에 열이 분산되는 위험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한다. 한 항성이 활동하는 동안, 3,500만 도에 이르는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의 점진적 하강에 거의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너희는 3,500만 도의 열을, 어떤 인력의 압력과 관련해서, 전자(電子)가 끓는 온도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런 압력 하에서는, 그리고 그런 온도

7. SOURCES OF SOLAR ENERGY

41:7.1 (463.1) The internal temperature of many of the suns, even your own, is much higher than is commonly believed. In the interior of a sun practically no whole atoms exist; they are all more or less shattered by the intensive X-ray bombardment which is indigenous to such high temperatures. Regardless of what material elements may appear in the outer layers of a sun, those in the interior are rendered very similar by the dissociative action of the disruptive X rays. X ray is the great leveler of atomic existence.

41:7.2 (463.2) The surface temperature of your sun is almost 6,000 degrees, but it rapidly increases as the interior is penetrated until it attains the unbelievable height of about 35,000,000 degrees in the central regions. (All of these temperatures refer to your Fahrenheit scale.)

41:7.3 (463.3) All of these phenomena are indicative of enormous energy expenditure, and the sources of solar energy, named in the order of their importance, are:

41:7.4 (463.4) 1. Annihilation of atoms and, eventually, of electrons.

41:7.5 (463.5) 2. Transmutation of elements, including the radioactive group of energies thus liberated.

41:7.6 (463.6) 3. The accumulation and transmission of certain universal space-energies.

41:7.7 (463.7) 4. Space matter and meteors which are incessantly diving into the blazing suns.

41:7.8 (463.8) 5. Solar contraction; the cooling and consequent contraction of a sun yields energy and heat sometimes greater than that supplied by space matter.

41:7.9 (463.9) 6. Gravity action at high temperatures transforms certain circuitized power into radiative energies.

41:7.10 (463.10) 7. Recaptive light and other matter which are drawn back into the sun after having left it, together with other energies having extrasolar origin.

41:7.11 (463.11) There exists a regulating blanket of hot gases (sometimes millions of degrees in temperature) which envelops the suns, and which acts to stabilize heat loss and otherwise prevent hazardous fluctuations of heat dissipation. During the active life of a sun the internal temperature of 35,000,000 degrees remains about the same quite regardless of the progressive fall of the external temperature.

41:7.12 (463.12) You might try to visualize 35,000,000 degrees of heat, in association with certain gravity pressures, as the electronic boiling point. Under such pressure and at such temperature all atoms

에서는, 모든 원자가 퇴화하고, 전자를 비롯한 다른 것들의 원조(元祖)인 구성성분으로 분열되며; 심지어 전자와 기타 궁극체의 결합이 분열되더라도, 항성은 궁극체로 퇴화할 수 없다.

이 항성 온도가 궁극체와 전자를 크게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후자(後者)와 같은 것들은 이런 조건하에서 그 실존을 계속 유지한다. 너희는 보통의 물 한 방울이 1조(兆)의 10억 배 이상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숙고할 때, 궁극체 활동과 전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높은 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100마력(馬力)을 2년 동안 계속 사용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현재 매초 뿜어내는 전체 열은, **유란시아** 바닷물 전체를 단 1초만에 모두 끓어오르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우주 에너지의 주요 흐름 가운데, 직통 경로 속에서 작용하는 항성들만이 영구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항성 불꽃은 무기한으로 타오르는데, 공간_세력과 순환하는 비슷한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항성의 물질 손실을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충전하는 이 주요 경로에서 멀리 옮겨진 별들은, --점차 식어지고 결국에는 타버리는-- 에너지 고갈을 겪게 돼있다.

죽었거나 죽어가는 그런 항성들은, 충돌의 영향으로 다시 젊어지거나, 공간에 있는 빛나지 않는 어떤 에너지 섬으로 인해서, 또는 근처에 있는 작은 항성 또는 체계를 인력(引力)으로_강탈함으로써,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죽은 항성들 대부분은 이런 기법 또는 다른 진화 기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결국 이렇게 재충전되지 못한 것은, 인력으로 인한 응축이, 궁극체가 에너지 압력으로 응축되는 결정적 수준에 도달할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붕괴되게 돼있다. 사라지는 그런 항성은, 이렇게 해서 아주 희귀한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데, 더 순조롭게 자리 잡은 다른 항성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놀라운 정도로 적합하다.

8. 항성 에너지의 반응

공간_에너지 경로 속에 회로가 형성돼 있는 항성의 경우에, 다양한 복합 연쇄 핵_반응으로 말미암아 항성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소_탄소_헬륨 반응이다. 이런 변질 작용에서, 탄소가 에너지 촉매로서 작용하는데,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탄소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의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수소가 탄소 원자핵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탄소는 그런 양성자를 네 개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화 상태가 이뤄졌을 때,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양성자들을 방출한다. 이런 반응 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소 입자들이 하나의 헬

are degraded and broken up into their electronic and other ancestral components; even the electrons and other associations of ultimatons may be broken up, but the suns are not able to degrade the ultimatons.

41:7.13 (463.13) These solar temperatures operate to enormously speed up the ultimatons and the electrons, at least such of the latter as continue to maintain their existence under these conditions. You will realize what high temperature means by way of the acceleration of ultimatonic and electronic activities when you pause to consider that one drop of ordinary water contains over one billion trillions of atoms. This is the energy of more than one hundred horsepower exerted continuously for two years. The total heat now given out by the solar system sun each second is sufficient to boil all the water in all the oceans on Urantia in just one second of time.

41:7.14 (464.1) Only those suns which function in the direct channels of the main streams of universe energy can shine on forever. Such solar furnaces blaze on indefinitely, being able to replenish their material losses by the intake of space-force and analogous circulating energy. But stars far removed from these chief channels of recharging are destined to undergo energy depletion — gradually cool off and eventually burn out.

41:7.15 (464.2) Such dead or dying suns can be rejuvenated by collisional impact or can be recharged by certain nonluminous energy islands of space or through gravity-robbery of near-by smaller suns or systems. The majority of dead suns will experience revivification by these or other evolutionary techniques. Those which are not thus eventually recharged are destined to undergo disruption by mass explosion when the gravity condensation attains the critical level of ultimatonic condensation of energy pressure. Such disappearing suns thus become energy of the rarest form, admirably adapted to energize other more favorably situated suns.

8. SOLAR-ENERGY REACTIONS

41:8.1 (464.3) In those suns which are encircuited in the space-energy channels, solar energy is liberated by various complex nuclear-reaction chains, the most common of which is the hydrogen-carbon-helium reaction. In this metamorphosis, carbon acts as an energy catalyst since it is in no way actually changed by this process of converting hydrogen into helium. Under certain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the hydrogen penetrates the carbon nuclei. Since the carbon cannot hold more than four such protons, when this saturation state is attained, it begins to emit protons as fast as new ones arrive. In this

를 원자가 되어 나오게 된다.

수소 함유량의 저하{低下}가 항성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타버릴 운명에 있는 항성들 안에서는, 수소가 다 소모되는 순간에 그 밝기가 절정에 도달한다. 이런 지점에 도달한 후에, 인력으로 인한 응축 과정으로 밝기가 유지된다. 그런 별은 결국, 소위 하얀 난쟁이 별이라고 불리는, 매우 응축된 구체가 될 것이다.

큰 항성--곧 작은 원형{圓形} 성운--의 경우에, 수소가 고갈되고 인력으로 인한 응축이 일어날 때, 그런 덩어리가 외부 기체 지역을 지탱할 정도로 내부 압력을 유지시킬 만큼 충분히 불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갑작스런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 인력과 전기{電氣}의 변화로 인해, 전기 잠재력이 없는 엄청난 양의 미세 입자들이 발생되며, 그런 입자들은 항성 내부로부터 즉시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거대한 항성이 수일 내에 붕괴된다. 50여 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거대한 신성{新星}이 붕괴된 것은, 이런 “탈출하는 입자들”의 이주{移住}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별 덩어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40분 만에 붕괴됐다.

일반적으로, 광대하게 분출된 물질은, 식어가는 남은 항성 근처에, 방대한 성운 기체 구름으로서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게자리** 성운 같은 여러 유형의 불규칙 성운이 기원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게자리** 성운은 약 900년 전에 기원됐으며, 불규칙적인 이 성운 덩어리 중심 근처에 홀로 있는 별로서, 어미 구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9. 항성의 안정성

큰 항성들은, 강력한 X 광선의 도움을 얻어야만 빛이 겨우 탈출할 만큼, 자체의 전자들에 대한 상당한 인력 통제를 유지한다. 이 도우미 광선은 모든 공간을 관통하며, 에너지의 기본 궁극체 결합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항성이 -- 3,500만 도가 넘는 -- 최대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항성에서 초기 시절에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손실은, 빛의 탈출보다 궁극체의 누출{漏出} 때문이다. 이 궁극체 에너지는, 항성의 청년기 시절 동안 진정한 에너지 돌풍으로서, 전자{電子}로 결합되고 에너지를 물질화하는 모험에 참여하기 위해 우주 속으로 탈출한다.

원자와 전자는 인력{引力}의 지배를 받는다. 궁극체는 국지적 인력, 즉 물질의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절대인력인 **낙원** 인력, 즉 온갖 우주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궤도의 성향인 회전성향에는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 궁극체의 에너지는,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물질 덩어리의 직접 인력이나 직접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광범한 창조물의 거대한 타

reaction the ingoing hydrogen particles come forth as a helium atom.

41:8.2 (464.4) Reduction of hydrogen content increases the luminosity of a sun. In the suns destined to burn out, the height of luminosity is attained at the point of hydrogen exhaustion. Subsequent to this point, brilliance is maintained by the resultant process of gravity contraction. Eventually, such a star will become a so-called white dwarf, a highly condensed sphere.

41:8.3 (464.5) In large suns — small circular nebulae — when hydrogen is exhausted and gravity contraction ensues, if such a body is not sufficiently opaque to retain the internal pressure of support for the outer gas regions, then a sudden collapse occurs. The gravity-electric changes give origin to vast quantities of tiny particles devoid of electric potential, and such particles readily escape from the solar interior, thus bringing about the collapse of a gigantic sun within a few days. It was such an emigration of these “runaway particles” that occasioned the collapse of the giant nova of the Andromeda nebula about fifty years ago. This vast stellar body collapsed in forty minutes of Urantia time.

41:8.4 (464.6) As a rule, the vast extrusion of matter continues to exist about the residual cooling sun as extensive clouds of nebular gases. And all this explains the origin of many types of irregular nebulae, such as the Crab nebula, which had its origin about nine hundred years ago, and which still exhibits the mother sphere as a lone star near the center of this irregular nebular mass.

9. SUN STABILITY

41:9.1 (465.1) The larger suns maintain such a gravity control over their electrons that light escapes only with the aid of the powerful X rays. These helper rays penetrate all space and are concerned in the maintenance of the basic ultimatonic associations of energy. The great energy losses in the early days of a sun, subsequent to its attainment of maximum temperature — upwards of 35,000,000 degrees — are not so much due to light escape as to ultimatonic leakage. These ultimatonic energies escape out into space, to engage in the adventure of electronic association and energy materialization, as a veritable energy blast during adolescent solar times.

41:9.2 (465.2) Atoms and electrons are subject to gravity. The ultimatons are *not* subject to local gravity, the interplay of material attraction, but they are fully obedient to absolute or Paradise gravity, to the trend, the swing, of the universal and eternal circl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Ultimatonic energy does not obey the linear or direct gravity attraction of near-by or remote material masses,

원 회로에는 늘 그대로 맞춰서 돈다.

너희 태양의 중심은, 매년 거의 1,000억 톤에 해당하는 실제 물질을 방출하며, 한편 거대한 항성들은, 그 초기 성장 기간, 즉 처음 10억 년 동안, 경이적인 비율로 물질을 방출한다. 항성의 생명은 내부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안정되며, 원자(原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임계점에서, 큰 항성들이 격렬한 맥동(脈動)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항성의 안정성은 --거대한 압력과 상상할 수 없는 온도가 균형을 이루는-- 대립(對立)하는 인력과 열 사이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항성들의 내부 기체 탄력성이, 다양한 물질로 뒤덮이는 층들을 지탱하며, 인력과 열이 평형을 이룰 때, 외부 물질의 무게가, 밑에 있는 내부 기체의 온도 압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많은 젊은 별의 경우에, 인력으로 인한 계속된 응축이 내부 온도를 계속 증가하게 만들며, 내부의 열이 올라감에 따라서, 초월기체 폭풍의 내부 X-광선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 원심(遠心) 운동과 관련해, 항성은 비로소 그 바깥쪽 층들을 공간 속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인력과 열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너희의 태양은, 팽창하고 응축하는 그 주기 사이에 비교적 균형을 이룬지 오래 됐는데, 이런 소동(騷動)은 비교적 다수의 젊은 별에서 거대한 맥동을 일으킨다. 너희 태양의 나이는 현재 60억 년을 지나고 있다. 태양은 지금 가장 경제적인 기간을 지나면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효율로 250억 년 이상 빛을 발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쇠퇴 기간을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초기 기간과 안정된 작용을 하는 기간을 합친 만큼 길 것이다.

10. 인간거주 세계의 기원

어떤 변광성은, 최대의 맥동 상태에 있거나 그에 가까울 때, 중속되는 체계들을 기원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다수는, 결국 바로 너희의 태양 및 태양을 도는 행성들과 매우 흡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태양은,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가까이 회전하며 들어올 때 크게 진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며, 태양의 외부 표면이 실제적인 물질 흐름들을 --이어지는 폭포수 같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가장 가까이 병렬 상태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점점 더 맹렬하게 지속됐고, 태양 응집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태양계의 조상인 방대한 물질이 정점(頂點)에 이르기까지 세차게 배출됐다. 비슷한 상황에서, 끌어당기는 그 덩어리가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온전한 여러 행성을, 심지어 한 항성의 4

but it does ever swing true to the circuit of the great ellipse of the far-flung creation.

41:9.3 (465.3) Your own solar center radiates almost one hundred billion tons of actual matter annually, while the giant suns lose matter at a prodigious rate during their earlier growth, the first billion years. A sun's life becomes stable after the maximum of internal temperature is reached, and the subatomic energies begin to be released. And it is just at this critical point that the larger suns are given to convulsive pulsations.

41:9.4 (465.4) Sun stability is wholly dependent on the equilibrium between gravity-heat contention — tremendous pressures counterbalanced by unimagined temperatures. The interior gas elasticity of the suns upholds the overlying layers of varied materials, and when gravity and heat are in equilibrium, the weight of the outer materials exactly equals the temperature pressure of the underlying and interior gases. In many of the younger stars continued gravity condensation produces ever-heightening internal temperatures, and as internal heat increases, the interior X-ray pressure of supergas winds becomes so great that, in connection with the centrifugal motion, a sun begins to throw its exterior layers off into space, thus redressing the imbalance between gravity and heat.

41:9.5 (465.5) Your own sun has long since attained relative equilibrium between its expansion and contraction cycles, those disturbances which produce the gigantic pulsations of many of the younger stars. Your sun is now passing out of its six billionth year. At the present time it is functioning through the period of greatest economy. It will shine on as of present efficiency for more than twenty-five billion years. It will probably experience a partially efficient period of decline as long as the combined periods of its youth and stabilized function.

10. ORIGIN OF INHABITED WORLDS

41:10.1 (465.6) Some of the variable stars, in or near the state of maximum pulsation, are in process of giving origin to subsidiary systems, many of which will eventually be much like your own sun and its revolving planets. Your sun was in just such a state of mighty pulsation when the massive Angona system swung into near approach, and the outer surface of the sun began to erupt veritable streams — continuous sheets — of matter. This kept up with ever-increasing violence until nearest apposition, when the limits of solar cohesion were reached and a vast pinnacle of matter, the ancestor of the solar system, was disgorged.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closest approach of the attracting body sometimes draws off whole planets, even a quarter or third of a sun.

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끌어내기도 한다. 이런 큰 분출 현상은, 구름이_둘러싸는 듯한 어떤 특이한 유형의 세계, 즉 **묵성**과 **토성** 비슷한 구체들을 형성한다.

아무튼, 항성 체계 대부분은, 너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기원됐으며, 이것은 인력의_조수 작용{潮水作用} 기법으로 산출되는 것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세계가 건설되든지, 항성 체계 유형, 즉 행성, 위성, 하위위성, 및 운석과 더불어, 중앙에 있는 항성 또는 흑암 섬 등을 항상 인력이 만들어낸다.

개별 세계의 물리적 양상은 대체로, 기원된 방법, 천문 상황, 및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이, 크기, 회전 비율, 우주를 날아가는 속도 역시 결정 요인이다. 기체가_응축함으로써 생성되는 세계는 물론, 고체가_증가됨으로써 생성되는 세계 역시, 산{山}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초기 생애 동안에 너무 작지 않을 때, 물과 공기를 갖는 특징이 있다. 녹아서 갈라진 세계와, 충돌로 생긴 세계들의 경우에는, 광범한 산맥이 없는 때도 있다.

이런 모든 새로운 세계의 초기 시대 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모두가 거대한 물리적 격변을 겪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이것은 기체가_응축돼서 생긴 구체에 적용되는데, 이런 세계는 어떤 개별 항성이 초기에 응축하고 수축한 결과로 남겨진 거대한 성운 고리에서 발생된다. **유란시아**처럼 이중 기원을 갖는 행성들은, 격변이 적고 덜 소란스런 청년기 생애를 거친다. 그렇더라도, 너희 세계는 초기 단계에, 화산, 지진, 홍수, 및 엄청난 폭풍우를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격변을 체험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의 외곽에서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너희 태양계는 하나의 예외를 빼고, **예루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한편 **사타니아** 자체는, **노라티아덱**의 최외곽에 있는 체계에 근접해 있고, 이 성좌는 현재 **네바돈**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통과하고 있다. **미가엘**의 증여로 인해서 너희 행성이 명예롭고 우주의 큰 관심을 끄는 지위를 얻기까지, 너희는 정말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찮은 것 가운데 하나였다. 때로는 나중 것이 처음 것이 되는 반면,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기도 한다.

[**네바돈 동력 중심**들의 **우두머리**와 협력해서, 한 **천사장**이 제시했음]

These major extrusions form certain peculiar cloud-bound types of worlds, spheres much like Jupiter and Saturn.

41:10.2 (466.1) The majority of solar systems, however, had an origin entirely different from yours, and this is true even of those which were produced by gravity-tidal technique. But no matter what technique of world building obtains, gravity always produces the solar system type of creation; that is, a central sun or dark island with planets, satellites, subsatellites, and meteors.

41:10.3 (466.2) The physical aspects of the individual worlds are largely determined by mode of origin, astronomical situ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 Age, size, rate of revolution, and velocity through space are also determining factors. Both the gas-contraction and the solid-accretion worlds are characterized by mountains and, during their earlier life, when not too small, by water and air. The molten-split and collisional worlds are sometimes without extensive mountain ranges.

41:10.4 (466.3) During the earlier ages of all these new worlds, earthquakes are frequent, and they are all characterized by great physical disturbances; especially is this true of the gas-contraction spheres, the worlds born of the immense nebular rings which are left behind in the wake of the early condensation and contraction of certain individual suns. Planets having a dual origin like Urantia pass through a less violent and stormy youthful career. Even so, your world experienced an early phase of mighty upheavals, characterized by volcanoes, earthquakes, floods, and terrific storms.

41:10.5 (466.4) Urantia is comparatively isolated on the outskirts of Satania, your solar system, with one exception, being the farthest removed from Jerusem, while Satania itself is next to the outermost system of Norlatiadek, and this constellation is now traversing the outer fringe of Nebadon. You were truly among the least of all creation until Michael's bestowal elevated your planet to a position of honor and great universe interest. Sometimes the last is first, while truly the least becomes greatest.

41:10.6 (466.5) [Presented by an Archangel in collaboration with the Chief of Nebadon Power Centers.]

제42편. 에너지-정신과 물질

⇨ 041

유랜시아 책

043 ⇨

II 부. 지방우주

제42편
에너지-정신과 물질

섹션

소개

1. 낙원 힘과 에너지
2.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에너지)
3. 물질의 분류
4. 에너지와 물질의 변질
5. 파동-에너지의 형태화
6. 궁극체, 전자, 및 원자
7. 원자의 물질
8. 원자의 응집력
9. 자연 철학
10.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정신 체계)
11. 우주 자동작용
12. 원형과 형태-정신의 지배

소개

에너지가 모든 실존의 토대라는 면에서 볼 때, 우주의 기초는 물질이며,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순수 에너지를 통제하신다. 힘, 즉 에너지는 **우주 절대자**의 실존과 현존을 증명하고 입증하면서 영구히 서 있는 유일한 기념비다. **낙원 현존**들로부터 나오는 이 광대한 에너지 흐름은 결코 쇠퇴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 무한한 지탱{支撐}은 결코 무너진 적이 없었다.

우주 에너지는, **만유의 아버지** 자신의 뜻과 온전히_지혜로운 명령에 언제든지 일치하도록 조종된다. **영원한 아들**의 대등한 행동과 결정이, 또한 **공동 행위자**가 실행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일치된 목적이, 형태화된 동력과 순환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친히 통제하는 것을 수정한다. 이 신성한

PAPER 42

ENERGY — MIND AND MATTER

SECTIONS

Introduction

1. Paradise Forces and Energies
2.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Physical Energies)
3. Classification of Matter
4. Energy and Matter Transmutations
5. Wave-Energy Manifestations
6. Ultimatons, Electrons, and Atoms
7. Atomic Matter
8. Atomic Cohesion
9. Natural Philosophy
10.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Material Mind Systems)
11. Universe Mechanisms
12. Pattern and Form — Mind Dominance

INTRODUCTION

42:0.1 (467.1)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is material in the sense that energy is the basis of all existence, and pure energy is controlled by the Universal Father. Force, energy, is the one thing which stands as an everlasting monument demonstrating and proving the existence and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is vast stream of energy proceeding from the Paradise Presences has never lapsed, never failed; there has never been a break in the infinite upholding.

42:0.2 (467.2) The manipulation of universe energy is ever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will and the all-wise mandates of the Universal Father. This personal control of manifested power and circulating energy is modified by the co-ordinate acts and decisions of the Eternal Son, as well as by the united purposes of the Son and the Father

존재들은 친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또한 그들은 거의 무한한 숫자의 권속들의 인격자와 권능 속에서 활동하는데, 이들 각자가 온갖 우주에서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신성한 능력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수정하거나 변질시킨다고 해서,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모든 힘_에너지를 궁극적으로 통제하신다는 말이 진리임을, 어떤 면으로도 훼손하지 않는다.

1. 낙원 힘과 에너지

우주의 기초는 물질이지만, 생명의 본질은 영이다. 영들의 **아버지**는 우주들의 조상이기도 하며; **원본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원래의 원형(原型), 즉 **낙원 섬**의 영구_근원이기도 하다.

물질은--곧 에너지는--, 동일한 시공우주 실체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므로, 우주 현상으로서 **만유의 아버지** 안에 고유하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물질은 선천적 에너지를 드러내고 자급_자족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물리 현상에 관여하는 에너지에 연관된 인력{引力} 계통은, **낙원**으로부터 유래하고 **낙원**에 의존한다. 측정 가능한 첫 에너지 형태인 궁극체는, **낙원**을 자체의 핵으로 삼는다.

물질에 내재하고 우주 공간에 현존하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에너지 형태가 있다. 이것이 결국 발견되면,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물질의 신비를 적어도 거의 파헤쳤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창조주**에게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될 것이며; 신성한 기법을 한 국면 더 정복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낙원**의 시공우주 기법과 **만유의 아버지**께서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물질을 실존하게 한 것도, 자연 법칙을 작동시킨 것도 아닐 것이다.

훨씬 더 큰 진보와 추가적인 발견이 있을 다음, **유란시아**가 현재의 지식 수준과 비교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한 후에, 너희가 물질로 된 전기{電氣} 장치의 에너지 순환을 그 물리적 징후를 변경시키는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런 모든 가능한 진보 이후에도, 과학자들은 물질 원자 한 개를 창조하거나, 한 번 반짝이는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물체에 덧붙이거나 하는 일은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에너지 창조와 생명 증여는 **만유의 아버지**와 그 동역 **창조주** 인격체들의 특권이다. 에너지와 생명의 강은 **신격**들로부터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 공간 전체로 쏟아져 나가는 **낙원** 힘의 보편적이고

executed by the Conjoint Actor. These divine beings act personally and as individuals; they also function in the persons and powers of an almost unlimited number of subordinates, each variously expressive of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these functional and provisional modifications or transmutations of divine power in no way lessen the truth of the statement that all force-energy is under the ultimate control of a personal God resident at the center of all things.

1. PARADISE FORCES AND ENERGIES

42:1.1 (467.3)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is material, but the essence of life is spirit. The Father of spirits is also the ancestor of universes;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is also the eternity-source of the original pattern, the Isle of Paradise.

42:1.2 (467.4) Matter — energy — for they are but diverse manifestations of the same cosmic reality, as a universe phenomenon is inherent in the Universal Father. “In him all things consist.” Matter may appear to manifest inherent energy and to exhibit self-contained powers, but the lines of gravity involved in the energies concerned in all these physical phenomena are derived from, and are dependent on, Paradise. The ultimaton, the first measurable form of energy, has Paradise as its nucleus.

42:1.3 (467.5) There is innate in matter and present in universal space a form of energy not known on Urantia. When this discovery is finally made, then will physicists feel that they have solved, almost at least, the mystery of matter. And so will they have approached one step nearer the Creator; so will they have mastered one more phase of the divine technique; but in no sense will they have found God, neither will they have established the existence of matter or the operation of natural laws apart from the cosmic technique of Paradise and the motivating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42:1.4 (468.1) Subsequent to even still greater progress and further discoveries, after Urantia has advanced immeasurably in comparison with present knowledge, though you should gain control of the energy revolutions of the electrical units of matter to the extent of modifying their physical manifestations — even after all such possible progress, forever will scientists be powerless to create one atom of matter or to originate one flash of energy or ever to add to matter that which we call life.

42:1.5 (468.2) The creation of energy and the bestowal of life are the prerogativ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associate Creator personalities. The river of energy and life is a

일치된 흐름이다. 이 신성한 에너지가 전체 창조물에 가득 차 있다. 결국 에너지가 되는 공간_힘의 그런 변화를, 힘을 조직하는 존재들이 개시하고, 그런 변경을 시작하며;동력 지휘자들은 에너지를 물질로 변질시키며;그리하여 물질 세계들이 탄생된다. **생명 운반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 즉 죽은 물질 속에서 물질 생명을 개시한다.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과도기 영역에 두루, 마찬가지로 실행한다. 더 높은 영 **창조주**들이, 신성한 에너지 형태로써 비슷한 과정을 태동시키며, 그 결과로 상류 영 형태의 지성 생명체가 생긴다.

에너지는 **낙원**으로부터 나아가는데, 신성한 질서에 따라 형성된다. 에너지는--곧 순수 에너지는--, 신성한 조직의 성질을 띠며;세 분 **하나님**이 온갖 우주의 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이, 한 본부에 포함된 세 분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든 힘은 **낙원**에 회로화돼 있는데, **낙원 현존**들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돌아가며, 본질적으로 원인 없는 **원인**의--곧 **만유의 아버지**의-- 형태화(形態化)이며;**아버지** 없이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_실존하는 **신격**으로부터 유래된 힘은 본질적으로 늘 존재한다. 힘과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무한자**의 이런 형태화는, 무제한적 변환, 끝없는 변형, 그리고 영원한 변질을 겪을지 모르지만;어떤 의미나 정도로 보더라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무한자**의 이런 형태화는 사라질 수 없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자**로부터 나왔더라도, 에너지는 무한하게 형태화 되지는 않으며;현재 표현된 총괄우주에는 외부 한계가 있다.

에너지는, 영원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으며;전부_포함하는 **무한성**의 지배력에 언제든지 반응한다. 힘과 에너지는 영구히 계속되며;**낙원**으로부터 나갔으므로, 규정된 순회여행을 마치기까지 끝없이 긴 세월이 소요될지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낙원 신격**에서 기원된 것은, 오직 **낙원**을 목적지로, 즉 **신격**을 운명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갖 우주가 순환하며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질서정연하고 광범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증거가 곧 나타났을 것이다. 모든 법칙, 조직, 경영, 그리고 우주 탐험가들의 증언 등이--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우주는, 실존이 끝없이 순환하는, 비교적 무제한이지만 그럼에도 무한성과 비교할 때에는 유한한 실존이다.

continuous outpouring from the Deities, the universal and united stream of Paradise force going forth to all space. This divine energy pervades all creation. The force organizers initiate those changes and institute those modifications of space-force which eventuate in energy; the power directors transmute energy into matter; thus the material worlds are born. The Life Carriers initiate those processes in dead matter which we call life, material life.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likewise perform throughout the transition realm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The higher spirit Creators inaugurate similar processes in divine forms of energy, and there ensue the higher spirit forms of intelligent life.

42:1.6 (468.3) Energy proceeds from Paradise, fashioned after the divine order. Energy — pure energy — partakes of the nature of the divine organization; it is fashioned after the similitude of the three Gods embraced in one, as they functi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ll force is circuited in Paradise, comes from the Paradise Presences and returns thereto, and is in essence a manifestation of the uncaused Cause — the Universal Father; and without the Father would not anything exist that does exist.

42:1.7 (468.4) Force derived from self-existent Deity is in itself ever existent. Force-energy is imperishable, indestructible; these manifestations of the Infinite may be subject to unlimited transmutation, endless transformation, and eternal metamorphosis; but in no sense or degree, not even to the slightest imaginable extent, could they or ever shall they suffer extinction. But energy, though springing from the Infinite, is not infinitely manifest; there are outer limits to the presently conceived master universe.

42:1.8 (468.5) Energy is eternal but not infinite; it ever responds to the all-embracing grasp of Infinity. Forever force and energy go on; having gone out from Paradise, they must return thereto, even if age upon age be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the ordained circuit. That which is of Paradise Deity origin can have only a Paradise destination or a Deity destiny.

42:1.9 (468.6) And all this confirms our belief in a circular, somewhat limited, but orderly and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If this were not true, then evidence of energy depletion at some point would sooner or later appear. All laws,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the testimony of universe explorers — everything points to the existence of an infinite God but, as yet, a finite universe, a circularity of endless existence, well-nigh limitless but, nevertheless, finite in contrast with infinity.

2.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에너지)

2.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PHYSICAL ENERGIES)

다양한 수준의 힘과 에너지--곧 물리적, 정신적, 또는 영적 에너지--를 가리킬만한, 그리고 묘사할만한 적당한 단어를 영어{英語}에서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 이야기들은, 힘, 에너지, 및 동력에 대해서 너희가 내린 통념적 정의를 일괄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 문서의 경우에, 예를 들면, **에너지**라는 단어는, 현상적 움직임, 행위, 및 잠재적인 모든 국면과 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한편 **힘**은 인력{引力} 이전{以前} 에너지 단계에, **동력**은 인력_이후 에너지 단계에 적용된다.

아무튼, 나는 시공우주의 힘, 떠오르는 에너지, 및 우주 동력에 대한--곧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분을 채택하도록 권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1. **공간 잠재력**.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의 명백하게 자유로운 공간 현존이다. 이 개념의 적용범위는, **무조건 절대자**의 기능적 전체성에 내재하는 우주 힘_공간 잠재성을 포함하며, 한편 이 개념이 내포하는 것은 전체 시공우주 실체를--곧 우주들을-- 암시하는데, 이 실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낙원 섬**으로부터 영원성방향으로 발산됐다.

낙원 아래쪽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힘이 현존하고 실행하는 세 지대{地帶}를 아마 포함할 것인데:**무조건 절대자**의 지레받침 지대, **낙원 섬** 자체 지대, 그리고 어떤 확인되지 않은, 평준화 하고 보정하는 매개체 또는 기능을 가진 중간 지대다. 이 세 동심{同心} 지대는 시공우주 실체의 **낙원** 순환을 일으키는 중심체다.

공간 잠재력은 실체가 되기 이전{以前}이며;**무조건 절대자**의 영역이고,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 지배에 대해서만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이 현존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버사에서는 공간 잠재력을 절대세력이라고 부른다.

2. **근본 힘**. 이것은 공간 잠재력에서 처음 생기는 기본적 변화를 나타내며, **무조건 절대자**가 하부 **낙원**에서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하부 **낙원**에서 나가는 공간 현존이, 들어오는 공간과는 어떤 면에서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가능한 관계든지 상관없이, 널리 인식된, 공간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낙원** 힘 조직가들이 균형상태에서_현존함으로써 1차적으로 차별시키

42:2.1 (469.1) It is indeed difficult to find suitable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whereby to designate and wherewith to describe the various levels of force and energy —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These narratives cannot altogether follow your accepted definitions of force, energy, and power. There is such paucity of language that we must use these terms in multiple meanings. In this paper, for example, the word *energy* is used to denote all phases and forms of phenomenal motion, action, and potential, while *force* is applied to the pregravity, and *power* to the postgravity, stages of energy.

42:2.2 (469.2) I will, however, endeavor to lessen conceptual confusion by suggesting the advisability of adopting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for cosmic force, emergent energy, and universe power — physical energy:

42:2.3 (469.3) 1. *Space potency*. This is the unquestioned fre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extension of this concept connotes the universe force-space potential inherent in the functional totalit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hile the intension of this concept implies the totality of cosmic reality — universes — which emanated eternitywise from the never-beginning, never-ending, never-moving, never-changing Isle of Paradise.

42:2.4 (469.4) The phenomena indigenous to the nether side of Paradise probably embrace three zones of absolute force presence and performance: the fulcral zon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zone of the Isle of Paradise itself, and the intervening zone of certain unidentified equalizing and compensating agencies or functions. These triconcentric zones are the centrum of the Paradise cycle of cosmic reality.

42:2.5 (469.5) Space potency is a prereality; it is the domai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is responsive only to the personal grasp of the Universal Father, notwithstanding that it is seemingly modifiable by the presence of the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42:2.6 (469.6) On Uversa, space potency is spoken of as ABSOLUTA.

42:2.7 (469.7) 2. *Primordial force*. This represents the first basic change in space potency and may be one of the nether Paradis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e know that the space presence going out from nether Paradise is modified in some manner from that which is incoming. But regardless of any such possible relationships, the openly recognized transmutation of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is the

는 기능이다.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의 공간 현존이 제공하는 저항{抵抗}에 반응해서,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힘은,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힘으로 바뀐다. 힘은 이제 **무조건 절대자**의 독자적 영역으로부터 떠올라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이것은 **행동의 하나님**이 개시한 어떤 시초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우주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생기는 반응이다. 근본적인 힘은, 절대성에 비례하는 초월 인과관계에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근본 힘은 때로 **순수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우버사**에서는 우리가 격리세력으로 언급한다.

3. **떠오르는 에너지**. 1차 힘 조직가들의 수동적 현존은, 공간 잠재력을 근본적인 힘으로 변형 시키기에 충분하며, 그런 활성화 된 공간 지역에서, 바로 이 힘 조직가들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근본적인 힘은, 우주 동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가 형태화되는 영역에서 두 가지 뚜렷한 변질 국면을 거치게 돼있다. 두 수준의 떠오르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a. **유력{有力} 에너지**. 이것은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집단으로 움직이는, 강력하게 긴장된, 그리고 힘차게 반응하는 에너지다--곧 1차 힘 조직가들이 활동함으로써 움직이게 된 거대한 에너지 체계들이다. 이 1차 에너지, 즉 유력 에너지는, 처음에는 **낙원** 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하부 **낙원**으로부터 작용하는, 절대 영향력의 집단적 무리에 대해서 총 질량의 반응, 즉 공간에서 방향성있는 반응을 생기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낙원**의 순환 및 절대 인력 지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하는 수준으로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 1차 힘 조직가들은 2차 동역자들이 활동하도록 양보한다.

b. **인력{引力} 에너지**. 이제 나타나는 인력에 반응하는 에너지는, 우주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모든 우주 물질의 활기찬 조상이 된다. 이 2차 에너지, 즉 인력 에너지는,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이 일으킨 압력 현존 및 긴장상태 경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듬은 결과물이다. 이 힘 조종자들의 업무에 반응해서, 공간 에너지는 유력 단계로부터 인력 단계로 재빨리 넘어가며, 그리하여 **낙원** (절대) 인력의 순환 지배력에 직접 반응하게 되며, 한편 에너지와 물질의 전자{電子} 단계 및 전자 이후 단계에서 빨리 나타나는 물질 덩어리에 내재하는 직선 인력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민감성을 드러낸다. 인력 반응이 출현한 뒤에, 만일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그 활동 분야에 배정될 수 있다면,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은 공간의 에너지 회오리바람으로부터 물러날 것이다.

primary differentiating function of the tension-presence of the living Paradise force organizers.

42:2.8 (469.8) Passive and potential force becomes active and primordial in response to the resistance afforded by the space presence of the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Force is now emerging from the exclusive domai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to the realms of multiple response — response to certain primal motions initiated by the God of Action and thereupon to certain compensating motions emanating from the Universal Absolute. Primordial force is seemingly reactive to transcendental causation in proportion to absoluteness.

42:2.9 (469.9) Primordial force is sometimes spoken of as *pure energy*; on Uversa we refer to it as SEGREGATA.

42:2.10 (470.1) 3. *Emergent energies*. The passive presence of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is sufficient to transform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and it is upon such an activated space field that these same force organizers begin their initial and active operations. Primordial force is destined to pass through two distinct phases of transmutation in the realms of energy manifestation before appearing as universe power. These two levels of emerging energy are:

42:2.11 (470.2) a. *Puissant energy*. This is the powerful-directional, mass-movemented, mighty-tensioned, and forcible-reacting energy — gigantic energy systems set in motion by the activities of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This primary or puissant energy is not at first definitely responsive to the Paradise-gravity pull though probably yielding an aggregate-mass or space-directional response to the collective group of absolute influences operative from the nether side of Paradise. When energy emerges to the level of initial response to the circular and absolute-gravity grasp of Paradise,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give way to the functioning of their secondary associates.

42:2.12 (470.3) b. *Gravity energy*. The now-appearing gravity-responding energy carries the potential of universe power and becomes the active ancestor of all universe matter. This secondary or gravity energy is the product of the energy elaboration resulting from the pressure-presence and the tension-trends set up by the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In response to the work of these force manipulators, space-energy rapidly passes from the puissant to the gravity stage, thus becoming directly responsive to the circular grasp of Paradise (absolute) gravity while disclosing a certain potential for sensitivity to the linear-gravity pull inherent in the soon appearing material mass of the electronic and the postelectronic stages of energy and matter. Upon the appearance of gravity

우리는 힘이 방출되는 초기 단계의 정확한 원인에 관해서 아주 확신하지는 않지만, 떠오르는 에너지가 형태화되는 두 수준에서 **궁극자**의 지성 행위를 인식한다.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고려할 때, **우버사**에서는 궁극세력이라고 부른다.

4. **우주 동력**. 공간_힘은 이미 공간_에너지로, 그 다음에는 인력이 통제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가 무르익어서, 동력 경로 속으로 유도될 수 있고, 우주 **창조주**들의 다채로운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광우주--즉 조직된 인간거주 창조계--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다채다능한 지휘자, 중심, 및 통제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현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개 국면 에너지 가운데 21개 국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통제를 구사한다. 이 동력_에너지_물질 분야는, **지존자**의 시_공간 전면통제 하에서 작용하는 **칠중 하나님**의 지성적 활동이 있는 영역이다.

우버사에서는 우주 동력의 영역을 인력세력이라고 부른다.

5. **하보나 에너지**. 변질되는 공간_세력을 따라서, 한 수준 한 수준, 시간과 공간에서 우주들의 에너지_동력이 작용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개념적으로 **낙원**을 향해서 움직여 왔다. **낙원**을 향해서 계속 가면, 중앙우주의 특질인 선재{先在}하는 에너지 국면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화의 순환은 그 자체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에너지와_동력은 이제 힘을 향해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힘은 공간 잠재력 및 근본 힘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본질을 가진 힘이다. **하보나** 에너지 체계는 이중적이 아니라 삼중적이다. 이것은 **낙원 삼위일체**를 대신해서 작용하는, **공동 행위자**의 실존적 에너지 범위다.

우버사에서는 이 **하보나** 에너지를 삼중세력이라고 부른다.

6. **초월 에너지**. 이 에너지 체계는, **낙원**의 상부 평면에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작동하며, 유한절대자들과 관련해서만 작동한다. **우버사**에서는 그것을 초월세력이라고 부른다.

7. **단일세력**. 에너지는 **낙원** 에너지일 때 신성{神性}에 가깝다. 단일세력은 **낙원**의 살아있는 비영적 에너지라고--곧 **원본 아들**의 살아있는 영 에너지의 영원성 상대물이라고, 따라서 **만유의 아버지**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라고, 우리가 믿는 경향

response,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may retire from the energy cyclones of space provided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re assignable to that field of action.

42.2.13 (470.4) We are quite uncertain regarding the exact causes of the early stages of force evolution, but we recognize the intelligent action of the Ultimate in both levels of emergent-energy manifestation. Puissant and gravity energies, when regarded collectively, are spoken of on Uversa as ULTIMATA.

42.2.14 (470.5) 4. *Universe power*. Space-force has been changed into space-energy and thence into the energy of gravity control. Thus has physical energy been ripened to that point where it can be directed into channels of power and made to serve the manifold purposes of the universe Creators. This work is carried on by the versatile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physical energy in the grand universe —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These Universe Power Directors assume the more or less complete control of twenty-one of the thirty phases of energy constituting the present energy system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is domain of power-energy-matter is the realm of the intelligent activities of the Sevenfold, functioning under the time-space overcontrol of the Supreme.

42.2.15 (470.6) On Uversa we refer to the realm of universe power as GRAVITA.

42.2.16 (470.7) 5. *Havona energy*. In concept this narrative has been moving Paradiseward as transmuting space-force has been followed, level by level, to the working level of the energy-power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Continuing Paradiseward, there is next encountered a pre-existent phase of energy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entral universe. Here the evolutionary cycle seems to turn back upon itself; energy-power now seems to begin to swing back towards force, but force of a nature very unlike that of space potency and primordial force. Havona energy systems are not dual; they are triune. This is the existential energy domain of the Conjoint Actor, functioning in behalf of the Paradise Trinity.

42.2.17 (471.1) On Uversa these energies of Havona are known as TRIATA.

42.2.18 (471.2) 6. *Transcendental energy*. This energy system operates on and from the upper level of Paradise and only in connection with the absonite peoples. On Uversa it is denominated TRANOSTA.

42.2.19 (471.3) 7. *Monota*. Energy is close of kin to divinity when it is Paradise energy.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monota is the living, nonspirit energy of Paradise — an eternity counterpart of the living, spirit energy of the Original Son — hence the nonspiritual energy system of the Universal

이 있다.

우리는 **낙원** 영과 **낙원** 단일세력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 그것들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영적 형태화와 비영적 형태화가 오직 *이름*으로만 겨우 구분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도저히 많이 말해줄 수 없다.

유한한 피조물이 **칠중 하나님**과 **사고 조율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체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떤 준절대 인격체든지, 심지어 동력 지휘자들이라도,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력 지휘자들이 공간 세력의 변질 기법에 정통하더라도, 그 비밀을 우리 같은 존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견해로는, 그들도 힘 조직가들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이 동력 지휘자들은 에너지 촉매이며; 다시 말해서, 자신이 현존함으로써 단위 구조를 이뤄서 에너지를 분할하거나, 조직하거나, 또는 조립한다. 이 모든 것은, 이 동력 실체들의 현존 앞에서, 에너지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내재적으로 에너지 속에 틀림없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시공우주 힘이 우주 동력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일곱 가지 “신성의 무한성” 가운데 하나로, 오래 전에 명명했다. 지방 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 너희는 이 점에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시공우주 힘의 기원, 본성, 및 변질을 우리가 완전히 납득할 수 없음에도, **낙원** 인력의 작용에 대해서 시공우주 힘이 직접 명백하게 반응하던 때--곧 연방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우리는 떠오르는 에너지 행태의 모든 국면에 대해 충분히 정통하고 있다.

3. 물질의 분류

중앙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은 동일하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은,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는 어떤 힘의 현존뿐 아니라, 그 구성 원소의 회전율, 회전하는 원소의 숫자와 크기, 핵 본체로부터 그것들까지의 거리, 또는 물질의 공간 내용물에도 의존한다.

다양한 항성, 행성, 및 천체에는, 크게 10가지 물질 분야가 있다:

1. 궁극체 물질--물질 실존의 근본 물리 단위 {單位}, 즉 전자를 만들게 되는 에너지 입자.

2. 하위전자{下位電子} 물질--항성의 초월기

Father.

42:2.20 (471.4) We cannot differentiate the *nature* of Paradise spirit and Paradise monota; they are apparently alike. They have different names, but you can hardly be told very much about a reality whose spiritual and whose nonspiritual manifestations are distinguishable only by *name*.

42:2.21 (471.5) We know that finite creatures can attain the worship exper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and the Thought Adjusters, but we doubt that any subabsolute personality, even power directors, can comprehend the energy inf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One thing is certain: If the power directors are conversant with the technique of the metamorphosis of space-force, they do not reveal the secret to the rest of us. It is my opinion that they do not fully comprehend the function of the force organizers.

42:2.22 (471.6) These power directors themselves are energy catalyzers; that is, they cause energy to segment, organize, or assemble in unit formation by their presence. And all this implies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inherent in energy which causes it thus to function in the presence of these power entities. The Nebadon Melchizedeks long since denominated the phenomenon of the transmutation of cosmic force into universe power as one of the seven “infinities of divinity.” And that is as far as you will advance on this point during your local universe ascension.

42:2.23 (471.7) Notwithstanding our inability fully to comprehend the origin, nature, and transmutations of cosmic force, we are fully conversant with all phases of emergent-energy behavior from the times of its direct and unmistakable response to the action of Paradise gravity — abou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function of the superuniverse power directors.

3. CLASSIFICATION OF MATTER

42:3.1 (471.8) Matter in all universes, excepting in the central universe, is identical. Matter in its physical properties depends on the revolutionary rates of its component members, the number and size of the revolving members, their distance from the nuclear body or the space content of matter, as well as on the presence of certain forces as yet undiscovered on Urantia.

42:3.2 (471.9) In the varied suns, planets, and space bodies there are ten grand divisions of matter:

42:3.3 (472.1) 1. Ultimatonic matter — the prime physical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 energy particles which go to make up electrons.

42:3.4 (472.2) 2. Subelectronic matter — the

체들이 폭발하고 반발하는 단계.

3. 전자 물질--물질이 분화{分化}되는 전기{電氣} 단계--전자, 양성자, 및 전자 집단을 다양하게 형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위.

4. 하위원자{下位原子} 물질--뜨거운 항성 내부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물질.

5. 분쇄된 원자--식어가는 항성과 공간 전역에서 발견됨.

6. 이온화된 물질--전기, 열, 또는 X-광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용매제 때문에, 자체의 외부 전자들이 제거된 (화학적으로 활성 있는) 개별 원자.

7. 원자 물질--원소 조직의 화학적 단계, 즉 분자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단위.

8. 분자 단계의 물질--일반 조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란시아**에 실존하는 것과 같은 물질.

9. 방사성 물질--적당한 열과 인력 압력이 감소된 조건 아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분열하는 경향과 활동.

10. 붕괴된 물질--식거나 죽은 항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정지된 물질. 이 물질 형태는 정말로 정지된 것은 아니며; 약간의 궁극체, 그리고 심지어 전자 활동도 여전히 있지만, 이 단위들은 매우 근접해 있으며, 그 회전율은 크게 줄어있다.

앞에서 말한 물질의 분류는, 창조된 존재들에게 보이는 형태보다는 그 조직과 관계된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가 태동하기 이전 단계뿐 아니라, **낙원**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 생기는 영원한 물질화를 고려하지도 않는다.

4. 에너지와 물질의 변질

빛, 열, 전류, 자기, 화학, 에너지, 및 물질은 -- 그 근원, 본질, 그리고 운명이--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물질 실체들과 함께, 아주 동일한 물체다.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끝없는 변화를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한 우주에서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다른 우주에서는 빛과 함께 열로, 또 다른 우주에서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며; 백만 년이 무수히 여러 번 지난 후에, 갑자기 드세지는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 또는 자력{磁力}으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며; 더 나중에, 그 다음 우주에

explosive and repellent stage of the solar supergases.

42.3.5 (472.3) 3. Electronic matter — the electrical stage of material differentiation — electrons, protons, and various other units entering into the varied constitution of the electronic groups.

42.3.6 (472.4) 4. Subatomic matter — matter existing extensively in the interior of the hot suns.

42.3.7 (472.5) 5. Shattered atoms — found in the cooling suns and throughout space.

42.3.8 (472.6) 6. Ionized matter — individual atoms stripped of their outer (chemically active) electrons by electrical, thermal, or X-ray activities and by solvents.

42.3.9 (472.7) 7. Atomic matter — the chemical stage of elemental organization, the component units of molecular or visible matter.

42.3.10 (472.8) 8. The molecular stage of matter — matter as it exists on Urantia in a state of relatively stable materialization under ordinary conditions.

42.3.11 (472.9) 9. Radioactive matter — the disorganizing tendency and activity of the heavier elements under conditions of moderate heat and diminished gravity pressure.

42.3.12 (472.10) 10. Collapsed matter — the relatively stationary matter found in the interior of the cold or dead suns. This form of matter is not really stationary; there is still some ultimatic even electronic activity, but these units are in very close proximity, and their rates of revolution are greatly diminished.

42.3.13 (472.11) The foregoing classification of matter pertains to its organization rather than to the forms of its appearance to created beings. Neither does it take into account the pre-emergent stages of energy nor the eternal materializations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4. ENERGY AND MATTER TRANSMUTATIONS

42.4.1 (472.12) Light, heat, electricity, magnetism, chemism, energy, and matter are —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 one and the same thing, together with other material realities as yet undiscovered on Urantia.

42.4.2 (472.13)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almost endless changes to which physical energy may be subject. In one universe it appears as light, in another as light plus heat, in another as forms of energy unknown on Urantia; in untold millions of years it may reappear as some form of restless, surging electrical energy or magnetic power; and still later on it may again appear in a subsequent

서 일련의 변형을 거치는 어떤 형태의 변화무쌍한 물질로 다시 나타났다가, 그 영역에 어떤 거대한 격변이 있을 때, 외견상 물리적으로 소멸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이 긴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를 거의 끝없이 방랑한 후에, 바로 이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서 여러 차례 그 형태와 잠재력이 바뀔지도 모르며, 그리하여 이런 변형은, 이어지는 세월을 통해서 끝없는 영역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 물질은 시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휩쓸려가지만, 영원성의 궤도를 계속 돌며,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오래 지연된다 하더라도 항상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물질을 내보낸 **무한한 인격체**가 제정한 경로를 따라 늘 진행한다.

동력 중심과 그 동역자들은, 궁극체를 전자 {電子} 궤도와 회전으로 변형시키는 일에 많이 관여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화 된 에너지의 기본 단위인 궁극체를 기술적으로 조종함으로써, 동력을 통제하고 증대시킨다. 그들은, 에너지가 이 원시 상태에서 순환하는 동안, 그 에너지의 주인이다. 그들은, 물리 통제관들과의 접촉에서 소위 전자 {電子} 단계인 전기 수준으로 그것이 변형된 후에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자로 조직된 에너지가 원자 체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동해 들어갈 때, 엄청나게 축소된다. 그런 물질화가 이뤄지면, 이 에너지는 직선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의 동력 계통과 에너지 경로들에서, 인력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존재들은 인력에 대해서 오직 --반{反} 인력 재능을 발휘하는-- 소극적 관계만 갖는다.

모든 공간 전역에서, 냉각을 비롯한 기타 영향들이, 궁극체를 독창적으로 조직해서 전자가 되게 하는 일에 관여한다. 열은 전자 활동에 대한 측정치인 반면, 냉기는 열 없음--곧 상대적 에너지 정지를-- 의미하는데, 떠오르는 에너지뿐 아니라 조직된 물질도 없고 인력에 반응하지도 않는, 공간의 우주 힘으로_채워진 상태다.

인력이 현존하고 작용하면, 이론적 절대 빙점 {氷點}이 출현하지 못하는데, 별과 별 사이 공간이 절대 빙점의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돼 있는 공간 전역에는, 조직되고 있는 전자 에너지뿐 아니라, 인력에_반응하는 에너지 흐름, 동력 회로, 그리고 궁극체 활동이 있다. 사실상,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유란시아**의 대기조차, 약 3,000마일에 이를 때까지 점점 얇아지고, 여기서부터 대기는 우주 공간 물질의 평균값에 이르기까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네바돈**에서 가장 비어있는 공간으로 알려진 부분은, 1 입방 인치마다 --하나의 전자에 해당하는-- 약 100개의 궁극체를 산출

universe as some form of variable mat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metamorphoses, to be followed by its outward physical disappearance in some great cataclysm of the realms. And then, after countless ages and almost endless wandering through numberless universes, again may this same energy re-emerge and many times change its form and potential; and so do these transformations continue through successive ages and throughout countless realms. Thus matter sweeps on, undergoing the transmutations of time but swinging ever true to the circle of eternity; even if long prevented from returning to its source, it is ever responsive thereto, and it ever proceeds in the path ordained by the Infinite Personality who sent it forth.

42:4.3 (473.1) The power centers and their associates are much concerned in the work of transmuting the ultimatons into the circuits and revolutions of the electron. These unique beings control and compound power by their skillful manipulation of the basic units of materialized energy, the ultimatons. They are masters of energy as it circulates in this primitive state. In liaison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they are able to effectively control and direct energy even after it has transmuted to the electrical level, the so-called electronic stage. But their range of action is enormously curtailed when electronically organized energy swings into the whirls of the atomic systems. Upon such materialization, these energies fall under the complete grasp of the drawing power of linear gravity.

42:4.4 (473.2) Gravity acts positively on the power lanes and energy channels of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but these beings have only a negative relation to gravity — the exercise of their antigravity endowments.

42:4.5 (473.3) Throughout all space, cold and other influences are at work creatively organizing ultimatons into electrons. Heat is the measurement of electronic activity, while cold merely signifies absence of heat — comparative energy rest — the status of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provided neither emergent energy nor organized matter were present and responding to gravity.

42:4.6 (473.4) Gravity presence and action is what prevents the appearance of the theoretical absolute zero, for interstellar space does not have the temperature of absolute zero. Throughout all organized space there are gravity-responding energy currents, power circuits, and ultimatonic activities, as well as organizing electronic energies. Practically speaking, space is not empty. Even the atmosphere of Urantia thins out increasingly until at about three thousand miles it begins to shade off into the average space matter in this section of the universe. The most nearly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종류의 물질 결핍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에너지와 물질의 진화 영역에서, 온도--곧 온기와 냉기--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밖에 없다. 궁극체는 온도의 양극단에 겸손히 복종한다. 낮은 온도는 어떤 형태의 전자 구성과 원자 조립을 촉진하는 반면, 높은 온도는 모든 종류의 원자 붕괴{崩壞}와 물질 분해를 용이하게 만든다.

항성의 어떤 내부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가장 원시적인 물질 결합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분해될 것이다. 그리하여 열은 인력 안정성을 크게 압도한다. 그러나 알려진 어떤 항성 열 또는 압력도, 궁극체를 원래의 유력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없다.

타오르는 항성은 물질을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흑암 세계들과 모든 외부 공간은, 이 에너지를 그 영역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지점까지, 전자와 궁극체의 활동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 어떤 전자 결합, 그리고 많은 핵 물질 기본 결합은, 지극히 낮은 온도의 열린 공간에서 형성되는데, 나중에는 물질화 하는 에너지를 가진 비교적 큰 부착물과 결합함으로써 증대된다.

우리는, 이 에너지와 물질의 끝나지 않는 변질{變質} 과정 내내, 인력 압력의 영향뿐 아니라 특정한 온도, 속도, 및 회전의 조건 하에서, 궁극체 에너지의 반인력{反引力} 습성에 직면해야만 된다. 온도, 에너지 흐름, 거리, 그리고 살아있는 힘 조직가와 동력 지휘자들의 현존 역시, 에너지와 물질의 모든 변질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물질에서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 증가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역학적 의미에서 볼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질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낙원**으로부터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오는 데 소모된 에너지에서, 이동 중에 극복한 힘의 저항과, 물질의 부분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당기는 힘을 뺀 것과 같다.

납의 두 가지 원자 무게가, 전자{電子}_이전{以前} 형태의 물질이 실존함을 가리킨다. 원래 형성된 납은, 라듐을 방출함으로써 우라늄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이 원자 무게의 차이는 원자 분열에서 생기는 실제 에너지 손실에 상당한다.

물질의 상대적 보전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양자{量子}라고 표현한, 정확한 그 양으로써만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물질 영역에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비함으로

empty space known in Nebadon would yield about one hundred ultimatons — the equivalent of one electron — in each cubic inch. Such scarcity of matter is regarded as practically empty space.

42.4.7 (473.5) Temperature — heat and cold — is secondary only to gravity in the realms of energy and matter evolution. Ultimatons are humbly obedient to temperature extremes. Low temperatures favor certain forms of electronic construction and atomic assembly, while high temperatures facilitate all sorts of atomic breakup and material disintegration.

42.4.8 (473.6) When subjected to the heat and pressure of certain internal solar states, all but the most primitive associations of matter may be broken up. Heat can thus largely overcome gravity stability. But no known solar heat or pressure can convert ultimatons back into puissant energy.

42.4.9 (473.7) The blazing suns can transform matter into various forms of energy, but the dark worlds and all outer space can slow down electronic and ultimatonic activity to the point of converting these energies into the matter of the realms. Certain electronic associations of a close nature, as well as many of the basic associations of nuclear matter, are formed in the exceedingly low temperatures of open space, being later augmented by association with larger accretions of materializing energy.

42.4.10 (473.8) Throughout all of this never-ending metamorphosis of energy and matter we must reckon with the influence of gravity pressure and with the antigravity behavior of the ultimatonic energies under certain conditions of temperature, velocity, and revolution. Temperature, energy currents, distance, and the presence of the living force organizers and the power directors also have a bearing on all transmutation phenomena of energy and matter.

42.4.11 (474.1) The increase of mass in matter is equal to the increase of energy divided by the square of the velocity of light. In a dynamic sense the work which resting matter can perform is equal to the energy expended in bringing its parts together from Paradise minus the resistance of the forces overcome in transit and the attraction exerted by the parts of matter on one another.

42.4.12 (474.2) The existence of pre-electronic forms of matter is indicated by the two atomic weights of lead. The lead of original formation weighs slightly more than that produced through uranium disintegration by way of radium emanations; and this difference in atomic weight represents the actual loss of energy in the atomic breakup.

42.4.13 (474.3) The relative integrity of matter is assured by the fact that energy can be absorbed or released only in those exact amounts which Urantia scientists have designated quanta. This

써 우주들이 계속 잘 유지해나가도록 도움이 된다.

전자 또는 다른 것의 위치가 바뀔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항상 하나의 “양자{量子}” 또는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지만, 그런 에너지 단위의 진동하는 행태 또는 파도치는 행태는, 관계된 물질 구조의 면적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런 파도 같은 에너지 표면장력파는, 궁극체, 전자, 원자, 또는 그렇게 실행하는 다른 단위들의 직경의 860배에 달한다. 양자 행태의 파동 역학을 관찰할 때 끝없이 생기는 혼동은, 에너지 파동들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두 물마루가 합쳐져서 두 배 높이의 한 물마루로 될 수 있는 반면, 한 물마루와 한 물계곡이 합쳐져서 서로 상쇄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

5. 파동_에너지의 형태화

오르본톤 연방우주에는 100개의 파동 에너지 옥타브가 있다. 에너지가 형태화 되는 이 100개 집단 중에서 64개가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인지됐다. 항성 광선은 연방우주의 척도로 볼 때 네 옥타브를 차지하는데, 하나의 단일 옥타브를 포함하는 가시광선, 즉 이 계열 중에서 46_번이다. 자외선 집단이 그 다음에 오며, 한편 그 위로 10옥타브는 X 광선인데, 라듐의 감마 광선이 뒤따른다. 항성의 가시광선 위로 32옥타브는 외부_공간 에너지 선인데, 크게 에너지를 얻은 관련된 미세 입자 물질과 매우 자주 혼합된다. 눈에 보이는 항성 빛 밑으로는 적외선이 나타나며, 30옥타브 아래쪽에는 무선통신 송출 구간이 있다.

파도 같은 에너지 형태화는 -- 20세기 **유란시아** 과학이 깨우친 견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10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궁극체 이하의 광선** --궁극체가 명확한 형태를 갖기 시작할 때 그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회전. 이것은 파도치는 현상이 감지되고 측정될 수 있는, 떠오르는 에너지의 첫 단계다.

2. **궁극체의 광선**. 궁극체의 미세한 구체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집합은,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진동이 공간 용적 안에 생기게 한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언젠가 궁극체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틀림없이 그들은 이 광선이 **유란시아**에 쏟아 부어지는 현상을 간파할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광선은, 전자로 물질을 조직하는 그 지점까지 궁극체가 속도를 늦추며 내려올 때, 궁극체의 초기 활동을 대표한다. 궁극체들이 뭉쳐서 전자가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저장과 함께 응축이 일어난다.

wise provision in the material realms serves to maintain the universes as going concerns.

42.4.14 (474.4) The quantity of energy taken in or given out when electronic or other positions are shifted is always a “quantum” or some multiple thereof, but the vibratory or wavelike behavior of such units of energy is wholly determined by the dimensions of the material structures concerned. Such wavelike energy ripples are 860 times the diameters of the ultimatons, electrons, atoms, or other units thus performing. The never-ending confusion attending the observation of the wave mechanics of quantum behavior is due to the superimposition of energy waves: Two crests can combine to make a double-height crest, while a crest and a trough may combine, thus producing mutual cancellation.

5. WAVE-ENERGY MANIFESTATIONS

42.5.1 (474.5)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re are one hundred octaves of wave energy. Of these one hundred groups of energy manifestations, sixty-four are wholly or partially recognized on Urantia. The sun's rays constitute four octaves in the superuniverse scale, the visible rays embracing a single octave, number forty-six in this series. The ultraviolet group comes next, while ten octaves up are the X rays, followed by the gamma rays of radium. Thirty-two octaves above the visible light of the sun are the outer-space energy rays so frequently commingled with their associated highly energized minute particles of matter. Next downward from visible sunlight appear the infrared rays, and thirty octaves below are the radio transmission group.

42.5.2 (474.6) Wavelike energy manifestations — from the standpoint of twentieth-century Urantia scientific enlightenment — may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en groups:

42.5.3 (474.7) 1. *Infraultimatic rays* — the borderland revolutions of ultimatons as they begin to assume definite form. This is the first stage of emergent energy in which wavelike phenomena can be detected and measured.

42.5.4 (474.8) 2. *Ultimatic rays*. The assembly of energy into the minute spheres of the ultimatons occasions vibrations in the content of space which are discernible and measurable. And long before physicists ever discover the ultimaton, they will undoubtedly detect the phenomena of these rays as they shower in upon Urantia. These short and powerful rays represent the initial activity of the ultimatons as they are slowed down to that point where they veer towards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matter. As the ultimatons aggregate into electrons, condensation occurs with a consequent storage of energy.

3. 짧은 공간 광선. 이것은 모든 순수한 전자 진동 중에서 가장 짧으며, 이 물질 형태의 원자 이전{以前} 단계를 대표한다. 이 광선을 산출하려면, 엄청나게 높거나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 우주 광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자가 형성될 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 붕괴의 징후로 일어난다. 그것들은 연방우주 중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인 은하수로부터 가장 큰 양으로 발산되는데, 외부 우주들 중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 역시 그렇다.

4. 전자{電子} 단계. 이 단계의 에너지는 일곱 연방우주에서 모든 물질화의 기초다. 전자들이 궤도 회전의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옮겨갈 때, 양자가 항상 방출된다. 전자의 궤도 이동은, 매우 명확하고 균일한, 측정 가능한 빛-에너지 입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이 일어날 때, 항상 빛-에너지 입자를 배출한다. 파도 같은 에너지 형태와 역시, 전자 단계에서 양성{陽性} 물체 및 기타 구성원의 실행에 뒤따라서 일어난다.

5. 감마 광선 --원자 물질이 자동 분열하는 특징이 있는 방사물. 이 형태의 전자 활동에서 가장 좋은 예는, 라듐 분열과 관련된 현상이다.

6. X-광선 집단. 전자{電子}가 감속되는 다음 단계는, 인공적으로 산출된 X 광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항성 X 광선을 산출한다. 전자의 전하{電荷}는 전자장을 만들며;운동은 전류를 일으키며;전류는 자기장을 일으킨다. 전자가 갑자기 멈추면, 그 결과로 생기는 전자기{電磁氣} 동요가 X 광선을 산출하며;X 광선은 바로 그 교란이다. 항성의 X 광선은, 인간 육체의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발생된 X 광선보다 약간 긴 것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X 광선은 동일하다.

7. 자외선, 즉 항성 빛의 화학적 광선 및 다양한 기계적 산출물.

8. 백색광 --항성의 전체 가시광선.

9. 적외선 --감지할 수 있는 열{熱} 단계에 좀 더 가까운 전자 활동의 감속{減速}.

10. 헤르츠 파동 --유란시아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그 에너지들.

파도 같은 이 10가지 에너지 활동 국면 전체 중에서, 인간의 눈은 오직 하나의 높이, 즉 보통 항성 광선의 빛 전체에만 반응할 수 있다.

소위 에테르는, 공간에서 생기는 한 집단의 힘과 에너지 활동을 지칭하는 집합 명칭에 불과하다. 궁극체, 전자, 및 기타 대량 에너지 집합체들은

42:5.5 (475.1) 3. *The short space rays.* These are the shortest of all purely electronic vibrations and represent the preatomic stage of this form of matter. These rays require extraordinarily high or low temperatures for their production. There are two sorts of these space rays: one attendant upon the birth of atoms and the other indicative of atomic disruption. They emanate in the largest quantities from the densest plane of the superuniverse, the Milky Way, which is also the densest plane of the outer universes.

42:5.6 (475.2) 4. *The electronic stage.* This stage of energy is the basis of all materialization in the seven superuniverses. When electrons pass from higher to lower energy levels of orbital revolution, quanta are always given off. Orbital shifting of electrons results in the ejection or the absorption of very definite and uniform measurable particles of light-energy, while the individual electron always gives up a particle of light-energy when subjected to collision. Wavelike energy manifestations also attend upon the performances of the positive bodie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electronic stage.

42:5.7 (475.3) 5. *Gamma rays* — those emanations which characterize the spontaneous dissociation of atomic matter. The best illustration of this form of electronic activity is in the phenomena associated with radium disintegration.

42:5.8 (475.4) 6. *The X-ray group.* The next step in the slowing down of the electron yields the various forms of solar X rays together with artificially generated X rays. The electronic charge creates an electric field; movement gives rise to an electric current; the current produces a magnetic field. When an electron is suddenly stopped, the resultant electromagnetic commotion produces the X ray; the X ray is *that* disturbance. The solar X rays are identical with those which are mechanically generated for exploring the interior of the human body except that they are a trifle longer.

42:5.9 (475.5) 7. *The ultraviolet* or chemical rays of sunlight and the various mechanical productions.

42:5.10 (475.6) 8. *The white light* — the whole visible light of the suns.

42:5.11 (475.7) 9. *Infrared rays* — the slowing down of electronic activity still nearer the stage of appreciable heat.

42:5.12 (475.8) 10. *Hertzian waves* — those energies utilized on Urantia for broadcasting.

42:5.13 (475.9) Of all these ten phases of wavelike energy activity, the human eye can react to just one octave, the whole light of ordinary sunlight.

42:5.14 (475.10) The so-called ether is merely a collective name to designate a group of force and energy activities occurring in space. Ultimatons,

한결같은 물질 입자이며,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때, 정말로 직선으로 진행한다. 빛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 형태화는, 분명한 에너지 입자들의 연속으로 돼있는데, 인력 및 개입하는 다른 힘들로 인해 변경될 때를 제외하면, 직선으로 진행한다. 특정한 관측 조건 하에서, 이런 에너지 입자 행렬이 파동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공간의 획일적인 힘 보호막, 즉 가상적 {假想的} 에테르의 저항, 그리고 관련된 물질 집합체의 상호인력 균형상태 때문이다. 물질의 입자간_간격의 공간은, 에너지 줄기의 처음 속도와 함께, 에너지_물질이 여러 형태로 굽이치는 현상을 일으킨다.

배가 물을 가르면서 지나갈 때 다양한 진폭과 간격의 파도를 일으키듯이, 공간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자극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파도 같은 반응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힘의 행태는, 너희가 가상하는 에테르와 여러 면으로 유사한 현상을 일으킨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 모든 공간에 있는 구체들은 회전하면서, 광대한 바다처럼 펼쳐진 힘_에너지를 해치고 돌진하며; 또한 어떤 원자 공간 용적도 비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에테르는 없으며, 바로 이 가상하는 에테르의 부재{不在}가, 인간거주 행성이 항성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돌고 있는 전자가 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6. 궁극체, 전자, 및 원자

우주의 힘이 공간에서 갖는 축적량은 균일하고 획일적인 반면, 진전된 에너지를 조직하여 물질이 되게 하려면, 일정한 부피와 확정된 무게를-- 곧 정확한 인력 반응을-- 갖는, 따로따로 분리된 덩어리를 집단 속으로 에너지를 농축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 인력, 즉 직선 인력은, 물질의 원자 조직이 출현함과 함께 충분히 활동성을 갖게 된다. X 광선 및 기타 비슷한 에너지들로 인해 활성화될 때, 원자_이전{以前} 물질은 인력에 약하게 반응하지만, 자유롭고 매어있지 않은, 대전{帶電}되지 않은 전자_에너지 입자 또는 결합되지 않은 궁극체들에게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직선_인력 흡인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궁극체는, 순환성을 가진 **낙원**_인력 흡인력에 대해서만 반응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직선_인력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으로 공간 떠돌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궁극체는 어중간한 반인력{反引力} 행태가 생기는 지점까지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힘 조직가 또는 동력 지휘자들의 도움 없이, 개체성소멸의 임계 탈출 속도에 도달하여 유력_에너지

electrons, and other mass aggregations of energy are uniform particles of matter, and in their transit through space they really proceed in direct lines. Light and all other forms of recognizable energy manifestations consist of a succession of definite energy particles which proceed in direct lines except as modified by gravity and other intervening forces. That these processions of energy particles appear as wave phenomena when subjected to certain observations is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undifferentiated force blanket of all space, the hypothetical ether, and to the intergravity tension of the associated aggregations of matter. The spacing of the particle-intervals of matter, together with the initial velocity of the energy beams, establishes the undulatory appearance of many forms of energy-matter.

42:5.15 (476.1) The excitation of the content of space produces a wavelike reaction to the passage of rapidly moving particles of matter, just as the passage of a ship through water initiates waves of varying amplitude and interval.

42:5.16 (476.2) Primordial-force behavior does give rise to phenomena which are in many ways analogous to your postulated ether. Space is not empty; the spheres of all space whirl and plunge on through a vast ocean of outspread force-energy; neither is the space content of an atom empty. Nevertheless there is no ether, and the very absence of this hypothetical ether enables the inhabited planet to escape falling into the sun and the encircling electron to resist falling into the nucleus.

6. ULTIMATONS, ELECTRONS, AND ATOMS

42:6.1 (476.3) While the space charge of universal force is homogeneous and undifferentiated, the organization of evolved energy into matter entails the concentration of energy into discrete masses of definite dimensions and established weight — precise gravity reaction.

42:6.2 (476.4) Local or linear gravity becomes fully operative with the appearance of the atomic organization of matter. Preatomic matter becomes slightly gravity responsive when activated by X ray and other similar energies, but no measurable linear-gravity pull is exerted on free, unattached, and uncharged electronic-energy particles or on unassociated ultimatons.

42:6.3 (476.5) Ultimatons function by mutual attraction, responding only to the circular Paradise-gravity pull. Without linear-gravity response they are thus held in the universal space drift. Ultimatons are capable of accelerating revolutionary velocity to the point of partial antigravity behavior, but they cannot, independent of force organizers or power directors, attain the

지 단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실상 궁극체는, 오직 완전히 식고 죽어가는 항성의 말기 분열에 참여할 경우에만 물리적 실존 상태를 벗어난다.

아직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궁극체는, 전자(電子)로 조직되기 위한 선행 조건인 회전_에너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국면의 물리적 활동을 거쳐서 속도가 줄어든다. 궁극체는:시공우주 힘에 대한 공통적 저항, 반인력(反引力) 잠재력으로 인한 개별 회전, 그리고 공통으로 상호결합된 궁극체 100개의 내부{內部}전자 위치, 이 세 종류의 움직임 을 갖는다.

서로 끌어당김이, 100개의 궁극체를 전자 구조 속에 묶어놓고 있으며;하나의 전형적 전자 안에 정확하게 100개의 궁극체가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체가 사라지면, 전형적인 전자 정체성이 파괴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자의 10가지 변경된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실존하게 된다.

전자 안에서, 궁극체는 궤도를 그리거나 회로{回路}속에서 회전하지는 않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퍼지거나 밀집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이한 전자 면적을 결정한다. 축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궁극체 회전 속도는, 또한 여러 유형의 전자 단위의 음성 또는 양성 반응을 결정한다. 전자 물질의 분리와 집산화{集團化}는 모두, 에너지_물질의 음성 및 양성 본체를 전기적{電氣的}으로 차별하는 것과 함께, 구성요소인 궁극체가 상호결합하는 이런 다양한 작용에서 유래한다.

각 원자는 직경이 1인치의 1억 분의 1을 약간 넘는 반면, 전자 1개의 무게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2,000분의 1보다 약간 무겁다. 원자 핵의 특질인 양성의 양성자는, 한 개의 음성 전자보다 크지 않은 반면, 무게는 거의 2,000배 이상이다.

전자 한 개의 질량이 10분의 1온스에 이르기까지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물질 덩어리의 크기가 확대된다면, 그런 한 개의 전자의 부피는 지구의 부피만큼 될 것이다. 한 개의 양성자--곧 전자 한 개보다 1,800배 무거운 양성자--가 못 한 개의 머리 크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못의 머리는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軌道}의 직경과 같아질 것이다.

7. 원자의 물질

모든 물질의 구조는 항성 체계와 거의 비슷하다. 에너지라는 각 미세 우주마다 그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비교적 고정된 물질적 실존의

critical escape velocity of deindividuation, return to the puissant-energy stage. In nature, ultimatons escape the status of physical existence only when participating in the terminal disruption of a cooled-off and dying sun.

42:6.4 (476.6) The ultimatons, unknown on Urantia, slow down through many phases of physical activity before they attain the revolutionary-energy prerequisites to electronic organization. Ultimatons have three varieties of motion: mutual resistance to cosmic force, individual revolutions of antigravity potential, and the intraelectronic positions of the one hundred mutually interassociated ultimatons.

42:6.5 (476.7) Mutual attraction holds one hundred ultimatons together in the constitution of the electron; and there are never more nor less than one hundred ultimatons in a typical electron. The loss of one or more ultimatons destroys typical electronic identity,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one of the ten modified forms of the electron.

42:6.6 (476.8) Ultimatons do not describe orbits or whirl about in circuits within the electrons, but they do spread or cluster in accordance with their axial revolutionary velocities, thus determining the differential electronic dimensions. This same ultimatonic velocity of axial revolution also determines the negative or positive reactions of the several types of electronic units. The entire segregation and grouping of electronic matter, together with the electric differentia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bodies of energy-matter, result from these various functions of the component ultimatonic interassociation.

42:6.7 (477.1) Each atom is a trifle over 1/100,000,000th of an inch in diameter, while an electron weighs a little more than 1/2,000th of the smallest atom, hydrogen. The positive proton, characteristic of the atomic nucleus, while it may be no larger than a negative electron, weighs almost two thousand times more.

42:6.8 (477.2) If the mass of matter should be magnified until that of an electron equaled one tenth of an ounce, then were size to be proportionately magnified, the volume of such an electron would become as large as that of the earth. If the volume of a proton — eighteen hundred times as heavy as an electron — should be magnified to the size of the head of a pin, then, in comparison, a pin's head would attain a diameter equal to that of the earth's orbit around the sun.

7. ATOMIC MATTER

42:7.1 (477.3) The formation of all matter is on the order of the solar system. There is at the center of every minute universe of energy a relatively stable,

핵심 부분이 있다. 이 중심 단위는 삼중적으로 형태화 될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에너지 단위들이 이 에너지 중심 주변에서 끊임없이 많이, 그러나 변동하는 회로 속에서 회전하며, 이 단위들은 너희의 태양계와 비슷한 어떤 별 집단의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과 어렴풋이나마 비교될 만하다.

항성 체계의 공간 속에서 행성들이 항성 주변을 돌 때 갖는 것과 대체로 비슷한 상대적 여유공간을 갖고, 전자들이 원자 내부에서 중앙의 양성자 주변을 회전한다. 실제 크기로 비교할 때, 안쪽에 있는 행성인 **수성**과 너희의 태양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대적 거리가 원자 핵과 안쪽 전자 궤도 사이에 있다.

원자 핵 주변에서, 축을 중심으로 한 전자의 회전과 그 궤도 속도는, 둘 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데, 전자를 구성하는 궁극체의 속도는 두말할 것도 없다. 라듐의 양성{陽性} 입자는 초당 10,000마일의 속도로 공간으로 날아가는 반면, 음성{陰性} 입자는 대략 빛의 속도를 갖는다.

지방우주는 10진법 구조로 돼있다. 이중적 우주에는 정확하게 100가지 식별 가능한 공간_에너지의 원자 물질화가 존재하며;그것은 **네바돈**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물질 조직이다. 이 100가지 형태의 물질은 규칙적인 계열들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한 개부터 100개에 이르는 전자가 비교적 미세한 중앙 핵 주위를 돈다.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이 다양한 에너지의 규칙적이고 믿음만한 결합이다.

100가지의 식별 가능한 원소가 모든 세계의 표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 있거나, 있었거나, 아니면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100가지 원자 유형 중에서 얼마나 많이 관측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성의 기원 및 차후의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무거운 원자들은 많은 세계의 지표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유란시아** 경우에도, 알려진 무거운 원소들은, 라듐 행태가 설명하듯이, 산산조각 나는 경향을 보인다.

원자의 안정성은, 중심체에 전기 작용이 없는 중성자{中性子}가 몇 개 있는가에 달려있다. 화학적 행태는, 자유롭게 회전하는 전자들의 활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오르본톤에서는, 하나의 원자 체계 안에서 궤도를 도는 100개 이상의 전자를 자연적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적이 전혀 없었다. 101개가 전자궤도장 속으로 인공적으로 주입됐을 때, 그 결과로 전자 및 해방된 다른 에너지들의 거친 분산과 함께, 중앙의 양성자가 반드시 거의 순간적으로 분열된다.

comparatively stationary, nuclear portion of material existence. This central unit is endowed with a threefold possibility of manifestation. Surrounding this energy center there whirl, in endless profusion but in fluctuating circuits, the energy units which are faintly comparable to the planets encircling the sun of some starry group like your own solar system.

42.7.2 (477.4) Within the atom the electrons revolve about the central proton with about the same comparative room the planets have as they revolve about the sun in the space of the solar system. There is the same relative distance, in comparison with actual size, between the atomic nucleus and the inner electronic circuit as exists between the inner planet, Mercury, and your sun.

42.7.3 (477.5) The electronic axial revolutions and their orbital velocities about the atomic nucleus are both beyond the human imagination, not to mention the velocities of their component ultimatons. The positive particles of radium fly off into space at the rate of ten thousand miles a second, while the negative particles attain a velocity approximating that of light.

42.7.4 (477.6) The local universes are of decimal construction. There are just one hundred distinguishable atomic materializations of space-energy in a dual universe; that is the maximum possible organization of matter in Nebadon. These one hundred forms of matter consist of a regular series in which from one to one hundred electrons revolve around a central and relatively compact nucleus. It is this orderly and dependable association of various energies that constitutes matter.

42.7.5 (477.7) Not every world will show one hundred recognizable elements at the surface, but they are somewhere present, have been present, or are in process of evolution. Conditions surrounding the origin and subsequent evolution of a planet determine how many of the one hundred atomic types will be observable. The heavier atoms are not found on the surface of many worlds. Even on Urantia the known heavier elements manifest a tendency to fly to pieces, as is illustrated by radium behavior.

42.7.6 (477.8) Stability of the atom depends on the number of electrically inactive neutrons in the central body. Chemical behavior is wholly dependent on the activity of the freely revolving electrons.

42.7.7 (478.1) In Orvonton it has never been possible naturally to assemble over one hundred orbital electrons in one atomic system. When one hundred and one have been artificially introduced into the orbital field, the result has always been the instantaneous disruption of the central proton with the wild dispersion of the electrons and other

원자는 한 개부터 100개까지의 궤도를 도는 전자를 함유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큰 원자의 10 개 외부 전자만이 별개의 분리된 물체로서 중앙 핵 주위를 회전하는데, 정확하고 일정한 궤도를 변하지 않으면서 조밀하게 회전한다. 중앙에 가장 가까운 30개의 전자는, 따로 조직화된 물체로서 관측되거나 감지되기 어렵다. 핵 근접성과 관련된 전자 행태의 바로 이 상대적 비율은, 포함된 전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모든 원자에서 통용된다. 핵에 근접할수록, 전자의 개체성이 줄어든다. 전자의 파도 같은 에너지 범위는 너무 넓어서 비교적 작은 원자 궤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으며; 특히 이것은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들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30개의 전자는 개체성을 갖지만, 그 에너지 체계들은 서로 혼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전자(電子)에서 다른 전자로, 그리고 거의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확장한다. 그 다음 30개의 전자는, 둘째 집단, 즉 에너지 지대를 구성하며, 개체성이 더 뚜렷하고, 그 속에 있는 에너지 체계를 더 철저히 통제하는 물질 덩어리다. 셋째 에너지 지대인, 그 다음 30개의 전자는 더 많이 개별화돼 있으며, 더 뚜렷하고 명확한 궤도에서 돈다. 오직 10개의 가장 무거운 원소 속에만 있는, 마지막 10개의 전자는, 당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모체(母體) 핵의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다. 온도와 압력이 최소한으로 변해도, 넷째이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우라늄 및 동종 원소들의 자연 붕괴에서 드러나듯이, 중앙 핵의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궤도를 도는 하나부터 스물일곱까지의 전자를 포함하는, 처음 스물일곱 개의 원자는, 나머지 보다 더 납득하기 쉽다. 스물여덟 개부터 그 위로, 우리는 **무조건 절대자**의 가정된 현존으로부터 생기는 예측 불가능성에 점점 더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자의 예측 불가능성 가운데 일부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 특이한 궁극체 회전 속도와, 궁극체의 설명되지 않는 “때 지어 물리는” 경향 때문이다. 다른 영향들--곧 물리적, 전기적, 자기적, 및 인력의 영향--역시, 다양한 전자 행태를 가져오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과 원자는 예측을 불허하는 면에서 비슷하다. 통계 전문가가 많은 숫자의 원자 또는 인격자를 지배하는 법칙을 공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개별 원자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8. 원자의 응집력

인력은 미세한 원자 에너지 체계를 고정시키

liberated energies.

42:7.8 (478.2) While atoms may contain from one to one hundred orbital electrons, only the outer ten electrons of the larger atoms revolve about the central nucleus as distinct and discrete bodies, intactly and compactly swinging around on precise and definite orbits. The thirty electrons nearest the center are difficult of observation or detection as separate and organized bodies. This same comparative ratio of electronic behavior in relation to nuclear proximity obtains in all atom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electrons embraced. The nearer the nucleus, the less there is of electronic individuality. The wavelike energy extension of an electron may so spread out as to occupy the whole of the lesser atomic orbits; especially is this true of the electrons nearest the atomic nucleus.

42:7.9 (478.3) The thirty innermost orbital electrons have individuality, but their energy systems tend to intermingle, extending from electron to electron and well-nigh from orbit to orbit. The next thirty electrons constitute the second family, or energy zone, and are of advancing individuality, bodies of matter exerting a more complete control over their attendant energy systems. The next thirty electrons, the third energy zone, are still more individualized and circulate in more distinct and definite orbits. The last ten electrons, present in only the ten heaviest elements, are possessed of the dignity of independence and are, therefore, able to escape more or less freely from the control of the mother nucleus. With a minimum variation in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members of this fourth and outermost group of electrons will escape from the grasp of the central nucleus, as is illustrated by the spontaneous disruption of uranium and kindred elements.

42:7.10 (478.4) The first twenty-seven atoms, those containing from one to twenty-seven orbital electrons, are more easy of comprehension than the rest. From twenty-eight upward we encounter more and more of the unpredictability of the supposed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some of this electronic unpredictability is due to differential ultimatic axial revolutionary velocities and to the unexplained “huddling” proclivity of ultimatons. Other influences — physical, electrical, magnetic, and gravitational — also operate to produce variable electronic behavior. Atoms therefore are similar to persons as to predictability. Statisticians may announce laws governing a large number of either atoms or persons but not for a single individual atom or person.

8. ATOMIC COHESION

42:8.1 (478.5) While gravity is one of several factors concerned in holding together a tiny atomic energy

는 데 관련된 몇몇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한편 기본적인 이 물리 단위들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강력하고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가 또한 있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의 기본 구성과 궁극적 행태의 비결이고, **유란시아**에서 앞으로 발견해야 할 어떤 힘이다. 보편적인 이 영향력은, 이 조그마한 에너지 조직 안쪽에 포함된 전체 공간에 퍼져 있다.

한 원자 안에서 전자{電子}들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원자 전반에 걸쳐서 이 전자들 사이의 공간은, 전자 속도 및 궁극체의 회전과 완전하게 동조하는, 파동 비슷한 형태화로 인해 활성화된다. 이 힘은, 너희가 인식한 양성 및 음성이 끌어당기는 법칙에 전적으로 지배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 행태는 때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름을 모르는 이 영향력은, 공간_세력에 대한 **무조건 절대자**의 반응인 듯하다.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전하{電荷}가 있는 양성자들과 전하가 없는 중성자들은, 전자보다 180배 무거운 입자인 중간자{中間子}의 상호작용 기능으로 인해 함께 묶여 있다. 이 배열이 없으면, 양성자들이 지니는 충전량{充電量}이 원자 핵을 분열시킬 것이다.

원자들이 구성된 바와 같이, 어떤 전기적 힘이나 인력작용 힘도, 핵{核}을 고정시킬 수 없다. 핵의 위상은 중간자의 상호 밀착{密着} 기능 때문에 유지되는데, 이것은 우세한 세력과_질량의 위력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자들과 중성자{中性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전하가 있는 입자와 전하가 없는 입자들을 함께 묶을 수 있다. 중간자는 핵 입자의 전하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1초보다 극미한 기간에, 주어진 하나의 핵 입자가 전하를 띤 양성자가 되고, 다음에는 전하를 띤 않은 중성자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상태의 이 교대 현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충전량이 하나의 분열시키는 영향력으로서 작용할 기회를 모두 뺏긴다. 그래서 중간자는 원자의 핵 안정성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에너지_운반체” 입자로서 작용한다.

중간자의 현존과 기능이, 다른 원자 수수께끼도 설명한다. 원자들이 방사능을 띠고 작용할 때, 그것들은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초과분 방사능은, 중간자인 “에너지_운반체”의 파괴에서 유래되는데, 중간자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전자{電子}가 된다. 중간자가 분열할 때, 또한 전하가 없는 어떤 작은 입자들의 방출이 동반된다.

중간자는, 원자 핵이 응집하려는 어떤 성질을 밝혀주지만, 양성자끼리 응집하는 것이나 중성자끼리 들러붙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원자를 응집 보존하게 하는,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은,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형태다.

system, there is also present in and among these basic physical units a powerful and unknown energy, the secret of their basic constitution and ultimate behavior, a force which remains to be discovered on Urantia. This universal influence permeates all the space embraced within this tiny energy organization.

42:8.2 (478.6) The interelectronic space of an atom is not empty. Throughout an atom this interelectronic space is activated by wavelike manifestations which are perfectly synchronized with electronic velocity and ultimatonic revolutions. This force is not wholly dominated by your recognized laws of positive and negative attraction; its behavior is therefore sometimes unpredictable. This unnamed influence seems to be a space-force reactio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42:8.3 (479.1) The charged protons and the uncharged neutrons of the nucleus of the atom are held together by the reciprocating function of the mesotron, a particle of matter 180 times as heavy as the electron. Without this arrangement the electric charge carried by the protons would be disruptive of the atomic nucleus.

42:8.4 (479.2) As atoms are constituted, neither electric nor gravitational forces could hold the nucleus together. The integrity of the nucleus is maintained by the reciprocal cohering function of the mesotron, which is able to hold charged and uncharged particles together because of superior force-mass power and by the further function of causing protons and neutrons constantly to change places. The mesotron causes the electric charge of the nuclear particles to be incessantly tossed back and forth between protons and neutrons. At one infinitesimal part of a second a given nuclear particle is a charged proton and the next an uncharged neutron. And these alternations of energy status are so unbelievably rapid that the electric charge is deprived of all opportunity to function as a disruptive influence. Thus does the mesotron function as an “energy-carrier” particle which mightily contributes to the nuclear stability of the atom.

42:8.5 (479.3)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the mesotron also explains another atomic riddle. When atoms perform radioactively, they emit far more energy than would be expected. This excess of radiation is derived from the breaking up of the mesotron “energy carrier,” which thereby becomes a mere electron. The mesotronic disintegration is also accompanied by the emission of certain small uncharged particles.

42:8.6 (479.4) The mesotron explains certain cohesive properties of the atomic nucleus, but it does not account for the cohesion of proton to proton nor for the adhesion of neutron to neutron. The paradoxical and powerful force of atomic cohesive integrity is a form of energy as yet

이 중간자는 너희 행성에 그토록 끊임없이 침범하는 우주 광선 속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undiscovered on Urantia.

42:8.7 (479.5) These mesotrons are found abundantly in the space rays which so incessantly impinge upon your planet.

9. 자연 철학

종교만 독단적이지는 않으며; 자연 철학도 똑같이 독단적으로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유명한 종교 교사가, 인간의 머리 속에 일곱 개의 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7이라는 숫자가 자연의 기초가 됐다고 논증했을 때, 그가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물리 세계의 어떤 참된 현상에 기초를 둔 그런 믿음을 주창했을 것이다. 에너지의 10진법 구조가 보편적으로 나타남에도,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우주 전체에는, 물질 이전(以前)의 칠중 전자 조직을 갖는 실체가 언제든지 나타남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

7이라는 숫자는, 중앙우주에, 그리고 내재적으로 특성을 유전하는 영적 체계에 기본적이지만, 10진 체계인 10이라는 숫자는, 에너지, 물질, 및 물질 창조에 내재적이다. 그럼에도 원자 세계는 어떤 주기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특징은 일곱씩 무리지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이것은 바로, 이 물질 세계가 아주 먼 옛날에, 영적으로 기원했음을 암시하는 탄생반점이다.

창조적 구조에서 일곱씩 되풀이되는 이런 잔존현상은, 기본 원소들이 그 원자 무게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될 때, 분리된 일곱 개의 주기로 비슷한 물리적 및 화학적{化學的} 성질이 반복해서 화학 분야에 나타난다. 유란시아의 화학 원소들이 한 줄로 배열될 때, 어떤 일정한 특성이나 성질이든지, 일곱째에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마다 생기는 이 주기적{週期的} 변화는, 전체 화학 표 전부를 통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반복되는데, 비교적 앞에 있는 가벼운 원자 집단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측될 수 있다. 어느 한 요소에서 시작하여, 어떤 하나의 성질을 기록한 후에, 그런 특성은 계속되는 여섯 원소 동안 변화될 것이지만, 여덟째에 이르면, 화학적으로 활동적인 여덟째 원소는 첫째와 비슷하고, 아홉째는 둘째와 비슷하며, 그렇게 계속된다. 물리 세계의 그런 사실은, 에너지의 칠중 구조가 선조{先祖}임을 뚜렷이 암시하며, 시공간에 속하는 창조계가 칠중으로 다양한 것이 기본 실체임을 암시한다. 또한 사람은, 자연 분광{分光}에 일곱 가지 색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 철학의 모든 가정{假定}이 타당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가상으로 만들어낸 에테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도 공간 현상을 조화시켜보려는 영리한 시도를 나타낸다. 우주에 대

9. NATURAL PHILOSOPHY

42:9.1 (479.6) Religion is not alone dogmatic; natural philosophy equally tends to dogmatize. When a renowned religious teacher reasoned that the number seven was fundamental to nature because there are seven openings in the human head, if he had known more of chemistry, he might have advocated such a belief founded on a true phenomenon of the physical world. There is in all the physi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notwithstanding the universal manifestation of the decimal constitution of energy, the ever-present reminder of the reality of the sevenfold electronic organization of prematter.

42:9.2 (479.7) The number seven is basic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piritual system of inherent transmissions of character, but the number ten, the decimal system, is inherent in energy, matter, and the material creation. Nevertheless the atomic world does display a certain periodic characterization which recurs in groups of seven — a birthmark carried by this material world indicative of its far-distant spiritual origin.

42:9.3 (480.1) This sevenfold persistence of creative constitution is exhibited in the chemical domains as a recurrence of simila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in segregated periods of seven when the basic elements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their atomic weights. When the Urantia chemical elements are thus arranged in a row, any given quality or property tends to recur by sevens. This periodic change by sevens recurs diminishingly and with variations throughout the entire chemical table, being most markedly observable in the earlier or lighter atomic groupings. Starting from any one element, after noting some one property, such a quality will change for six consecutive elements, but on reaching the eighth, it tends to reappear, that is, the eighth chemically active element resembles the first, the ninth the second, and so on. Such a fact of the physical world unmistakably points to the sevenfold constitution of ancestral energy and is indicative of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sevenfold diversity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Man should also note that there are seven colors in the natural spectrum.

42:9.4 (480.2) But not all the suppositions of natural philosophy are valid; for example, the hypothetical ether, which represents an ingenious attempt of man to unify his ignorance of space phenomena.

한 철학은, 소위 과학에서 말하는 관찰에 근거할 수 없다. 에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과학자는 그런 변질 가능성을 부인하려 할 것이다.

생물학적 융통성과 관련된 물리적 안정성이 자연 속에 현존하는 것은 오로지, 창조를 설계한 **으뜸 설계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지혜 때문이다. 초월적 지혜보다 못한 어떤 것이든지, 그토록 동시에 안정되고 그토록 효과적으로 융통성 있는 물질 단위를 결코 계획할 수 없다.

10.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정신 체계)

낙원 단일세력의 절대성으로부터, 공간 잠재력의 절대성에 이르기까지, 상대적 시공우주 실체의 끝없는 범위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비영적 실체들의 관계에 어떤 진화가 일어남을 암시한다--이 실체들은, 공간 잠재력 속에 숨겨져 있고, 단일세력 속에서 계시되며, 사이에 개재하는 시공우주 수준들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영원한 에너지 순환은, 우주들의 **아버지** 안에 회로화 돼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이나 가치 면에서 확장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시초의 아버지**는, 시_공간 의미를 가진, 그리고 시_공간을 초월한 의미를 가진, 늘 확장하는 경기장을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스스로 실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변화하는 관계의 경기장이며, 그 경기장에서, 살아있고 인격있는 정신의 체험적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_물질은 살아있는 신성한 영{靈}의 전면통제에 점진적으로 지배 받는다.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창조주**가 아닌 정신들의 살아있는 체계들 속에서 다시 결합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더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보조 영 이전{以前}의 정신**. 이 정신 수준은 체험하지 않으며, 인간거주 세계에서는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것은 기계적인 정신, 즉 물질 생명 중에서 가장 원시적 형태에 속하는 학습력_없는 지능이지만, 학습력_없는 그 정신은 원시 행성 생명 수준 외에도 여러 수준에서 작용한다.

2. **보조 영 정신**.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수준의 물질 정신 속에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을 통해 작용하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사역이다. 이 수준에서 물질 정신은: 처음 다섯 보조체 안에서 인간 이하의 (동물) 지성으로서; 일곱 보조체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지성으로서; 마지막 두 보조체 안에서 초인적 (중도자) 지성으로서 체

The philosophy of the universe cannot be predicated on the observations of so-called science. If such a metamorphosis could not be seen, a scientist would be inclined to den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butterfly out of a caterpillar.

42:9.5 (480.3) Physical stability associated with biologic elasticity is present in nature only because of the well-nigh infinite wisdom possessed by the Master Architects of creation. Nothing less than transcendental wisdom could ever design units of matter which are at the same time so stable and so efficiently flexible.

10.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MATERIAL MIND SYSTEMS)

42:10.1 (480.4) The endless sweep of relative cosmic reality, from the absoluteness of Paradise monota to the absoluteness of space potency, is suggestive of certain evolutions of relationship in the nonspiritual realiti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those realities which are concealed in space potency, revealed in monota, and provisionally disclosed on intervening cosmic levels. This eternal cycle of energy, being circuited in the Father of universes, is absolute and, being absolute, is expansile in neither fact nor value; nevertheless the Primal Father is even now — as always — self-realizing of an ever-expanding arena of time-space, and of time-space-transcended, meanings, an arena of changing relationships wherein energy-matter is being progressively subjected to the overcontrol of living and divine spirit through the experiential striving of living and personal mind.

42:10.2 (480.5) The universal nonspiritual energies are reassociated in the living systems of non-Creator minds on various levels, certain of which may be depicted as follows:

42:10.3 (480.6) 1. *Preadjutant-spirit minds*. This level of mind is nonexperiencing and on the inhabited worlds is ministered by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is is mechanical mind, the nonteachable intellect of the most primitive forms of material life, but the nonteachable mind functions on many levels beside that of primitive planetary life.

42:10.4 (481.1) 2. *Adjutant-spirit minds*. This is the ministry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unctioning through her seven adjutant mind-spirits on the teachable (nonmechanical) level of material mind. On this level material mind is experiencing: as subhuman (animal) intellect in the first five adjutants; as human (moral) intellect in the seven adjutants; as superhuman (midwayer) intellect in

힘하고 있다.

3. 진화하는 모론티아 정신 --상승하는 지방 우주 생애에서 진화하는 인격체의 확장하는 의식 {意識}. 이것은 **창조주 아들**과 관련해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증여한 것이다. 이 정신 수준은 모론티아 유형의 생명 운반체가 조직돼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운반체는 지방우주의 **모론티아 동력 감독관**들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한 것이다. 모론티아 정신은, 570가지 수준의 모론티아 생애에 반응해서 다르게 작용하는데, 달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공우주 정신과 관계하는 능력이 커짐을 드러낸다. 이것은 필사 피조물이 진화하는 과정이지만, 또한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은, 지역 창조에서, 모론티아가 아닌 자녀들에게, 모론티아가 아닌 계열의 정신을 증여한다.

시공우주 정신. 이것은 일곱 가지로 다채롭게 된, 시간과 공간의 정신인데, **일곱 으뜸 영** 각각이 한 국면을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에서 보살핀다. 시공우주 정신은 모든 유한한 정신 수준을 포함하며, 체험적으로는 **지존자 정신**의 진화하는--신격 수준과 협조하고, 초월적으로는 절대 정신의--곧 **공동 행위자**의 직통 회로의-- 실존 수준과 협조한다.

정신은 **낙원**에서 절대적이며;**하보나**에서는 유한절대적이며;**오르본톤**에서는 유한하다. 정신은 다채로운 에너지 체계들 외에 생생한 사역이 현존하면서 활동하고 있음을 항상 암시하며, 이것은 어떤 수준이나 종류의 정신에게든지 적용된다. 그러나 시공우주 정신을 넘어서면, 비영적 에너지에 대한 정신의 관계를 묘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보나** 정신은 준절대적이지만 진화를 초월하는 정신이며;실존적이고_체험적이므로, 너희에게 계시된 어떤 다른 개념보다 유한절대 정신에 더 가깝다. **낙원** 정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이며;실존적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정신이다. 그럼에도, **공동 행위자**가 우주에 현존하심이--곧 **낙원**에 계시된 정신의 **하나님**이 정신_인력으로 붙잡고 계심이-- 온갖 수준의 이 정신들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11. 우주 자동작용

정신을 평가하고 인식할 때, 우주가 기계적이지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우주는, 정신이 창조한 것이고, 법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자연 법칙은, 두 가지 영역인 것처럼 보이는 물질계 및 영계 속에서 작동하며, 실제로 이 둘은 하나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물질화된 모든 것의 1차 원인인 동시에, 모든 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버지**이다. **낙원 아버지**는, **하보나**_바깥 우주들에서 오직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으로서만--곧 **사고 조율사** 및 기타 비슷한 부분화된 존재로서

the last two adjutants.

42:10.5 (481.2) 3. *Evolving morontia minds* — the expanding consciousness of evolving personalities in the local universe ascending careers. This is the bestowal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n liaison with the Creator Son. This mind level connotes the organization of the morontia type of life vehicle, a synthesis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hich is effected by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of a local universe. Morontia mind functions differentially in response to the 570 levels of morontia life, disclosing increasing associative capacity with the cosmic mind on the higher levels of attainment. This is the evolutionary course of mortal creatures, but mind of a nonmorontia order is also bestowed by a Universe Son and a Universe Spirit upon the nonmorontia children of the local creations.

42:10.6 (481.3) *The cosmic mind*. This is the sevenfold diversified mind of time and space, one phase of which is ministered by each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o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cosmic mind encompasses all finite-mind levels and co-ordinates experientially with the evolutionary-deity levels of the Supreme Mind and transcendently with the existential levels of absolute mind — the direct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42:10.7 (481.4) On Paradise, mind is absolute; in Havona, absonite; in Orvonton, finite. Mind always connotes the presence-activity of living ministry plus varied energy systems, and this is true of all levels and of all kinds of mind. But beyond the cosmic mind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portray the relationships of mind to nonspiritual energy. Havona mind is subabsolute but superevolutionary; being existential-experiential, it is nearer the absonite than any other concept revealed to you. Paradise mind is beyond human understanding; it is existential, nonspatial, and nontemporal. Nevertheless, all of these levels of mind are overshadowed by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Conjoint Actor — by the mind-gravity grasp of the God of mind on Paradise.

11. UNIVERSE MECHANISMS

42:11.1 (481.5) In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mi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universe is neither mechanical nor magical; it is a creation of mind and a mechanism of law. But whil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laws of nature operate in what seems to be the dual realms of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in reality they are on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rimal cause of all mater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first and final Father of all spirits. The Paradise Father appears personally in the extra-Havona universes

만-- 몸소 나타나신다.

자동작용이 전체 창조물을 절대로 지배하지는 않으며; 전체로서의 온갖 우주는, 정신이 계획하고, 정신이 만들고, 정신이 경영한다. 그러나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온갖 우주의 신성한 자동작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완전해서, 무한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음을 흔적조차 식별할 수 없다. 창조하고 통제하며 유지하는 이 정신이 물질 정신도 아니고 창조물 정신도 아니기 때문이며; 정신은 신성한 실체인 창조자 수준에서, 그리고 그 수준으로부터 활동하는 영_정신이다.

우주의 자동작용에서 정신을 식별하고 발견하는 역량은, 그런 관찰하는 과제에 참여해서 조사하는 정신의 역량, 시야, 및 수용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로부터 조직된 시_공간 정신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동작용에 종속된다.

움직임과 우주 인력작용은, 온갖 우주의 비인격적 시_공간 자동작용의 두 얼굴이다. 영, 정신, 및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수준은 시간과 아주 상관없지만, 오직 참된 영 수준의 실체만이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곧 비공간적이다). 우주의 상류 정신 수준--곧 영_정신 수준--역시 비공간적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 같은 물질 수준의 정신은 우주 인력의 상호작용에 민감한데, 오직 영과 일체가 될수록 비례해서 이 반응을 잃어버린다. 영_실체의 수준은 그 영 내용물로 식별되며, 시간과 공간에서 영성(靈性)은 직선_인력 반응에 반비례로 측정된다.

직선_인력에 대한 반응은, 비영적(非靈的) 에너지의 양(量)을 재는 척도다. 모든 물질은--즉 조직화 된 에너지는--움직임과 정신이 그 물질에 작용할 때 외에는 이 인력에 종속된다. 원자 내부의 응집하는 힘이 극소_시공우주의 단거리 힘인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직선 인력은 거대_시공우주의 응집하는 단거리 힘이다. 소위 물질로서 조직화 된, 물질화 된 물리적 에너지는, 직선_인력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간을 지나갈 수 없다. 인력에 대한 그런 반응이 질량에 정비례하더라도, 개재하는 공간이 이를 너무 많이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겨우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수많은 초물질적 힘의 반인력(反引力) 영향이 현존하기 때문에, 공간이 결국 직선(直線) 인력 작용을 극복하는데, 이것은 인력의 영향과 그에 대한 모든 반응을 중화시키도록 작용한다.

극도로 복잡하고 상당히 자동으로_보이는 시공우주 자동작용은, 자동작용 자체의 본성과 능력을 이해하는 우주 수준보다 훨씬 낮은 어떤 지성

only as pure energy and pure spirit — as the Thought Adjusters and other similar fragmentations.

42:11.2 (481.6) Mechanisms do not absolutely dominate the total creation; the universe of universes *in toto* is mind planned, mind made, and mind administered. But the divine mechanis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ltogether too perfect for the scientific methods of the finite mind of man to discern even a trace of the dominance of the infinite mind. For this creating, controlling, and upholding mind is neither material mind nor creature mind; it is spirit-mind functioning on and from creator levels of divine reality.

42:11.3 (482.1) The ability to discern and discover mind in universe mechanisms depends entirely on the ability, scope, and capacity of the investigating mind engaged in such a task of observation. Time-space minds, organized out of the energies of time and space, are subject to the mechanisms of time and space.

42:11.4 (482.2) Motion and universe gravitation are twin facets of the impersonal time-space mechanis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levels of gravity response for spirit, mind, and matter are quite independent of time, but only true spirit levels of reality are independent of space (nonspatial). The higher mind levels of the universe — the spirit-mind levels — may also be nonspatial, but the levels of material mind, such as human mind, are responsive to the interactions of universe gravitation, losing this response only in proportion to spirit identification. Spirit-reality levels are recognized by their spirit content, and spirituality in time and space is measured inversely to the linear-gravity response.

42:11.5 (482.3) Linear-gravity response is a quantitative measure of nonspirit energy. All mass — organized energy — is subject to this grasp except as motion and mind act upon it. Linear gravity is the short-range cohesive force of the macrocosmos somewhat as the forces of intra-atomic cohesion are the short-range forces of the microcosmos. Physical materialized energy, organized as so-called matter, cannot traverse space without affecting linear-gravity response. Although such gravity respons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mass, it is so modified by intervening space that the final result is no more than roughly approximated when expressed as inversely according to the square of the distance. Space eventually conquers linear gravitation because of the presence therein of the antigravity influences of numerous supermaterial forces which operate to neutralize gravity action and all responses thereto.

42:11.6 (482.4) Extremely complex and highly automatic-appearing cosmic mechanisms always tend to conceal the presence of the origination or

제도 깨닫지 못하도록,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내주하는 정신의 현존을 항상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등{下等} 피조물에게는 고등{高等} 우주 자동작용이 정신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 결론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예외는, 스스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놀라운 현상 속에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일지도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실제 체험의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다.

정신이 우주를 조화시키기 때문에, 불변하는 자동작용은 실존할 수 없다. 시공우주의 자체_유지와 관련된 점진적 진화 현상은 보편적이다. 자발성이 무한한 한, 우주의 진화 수용력은 고갈되지 않는다. 오직 목적이 있는 지배하는 정신만이, 조화로운 통일을 향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데, 이 통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에 체험적 통합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룩한다.

어떤 우주 현상이든지, 우주 정신과 더 고도로 연합돼 있을수록, 하등 정신이 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우주 자동작용을 만든 정신은 창조적 영_정신이기 때문에(심지어 무한자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 중에서 가장 낮은 인간 정신은 물론, 낮은 수준의 우주 정신에게 결코 발견되거나 식별될 수 없다. 진화하는 동물 정신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혼자서 저절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12. 원형과 형제--정신의 지배

자동작용이 진화한다는 것은, 창조적 정신이 숨어있고 지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가리킨다. 필사자의 지능이 자동적인 기계장치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은, 행성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인 정신, 우수하고 창의적이며 의도적인 특성의 정신을, 사람이 가졌음을 보여준다. 정신은 항상 다음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

1. 물질적 자동작용을 창작함.
2. 감춰진 신비를 발견함.
3. 멀리 있는 상황을 탐구함.
4. 정신 체계를 만들어냄.
5. 지혜의 목표를 달성함.
6. 영 수준을 성취함.
7. 신성한--곧 지존적이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운명을 완성함.

정신은 항상 창의적이다. 개별 동물, 필사자,

creative indwelling mind from any and all intelligences very far below the universe levels of the nature and capacity of the mechanism itself. Therefore is it inevitable that the higher universe mechanisms must appear to be mindless to the lower orders of creatures. The only possible exception to such a conclusion would be the implication of mindedness in the amazing phenomenon of an *apparently self-maintaining universe* — but that is a matter of philosophy rather than one of actual experience.

42:11.7 (482.5) Since mind co-ordinates the universe, fixity of mechanisms is nonexistent. The phenomenon of progressive evolution associated with cosmic self-maintenance is universal. The evolutionary capacity of the universe is inexhaustible in the infinity of spontaneity. Progress towards harmonious unity, a growing experiential synthesis superimposed on an ever-increasing complexity of relationships, could be effected only by a purposive and dominant mind.

42:11.8 (482.6) The higher the universe mind associated with any universe phenomenon,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 lower types of mind to discover it. And since the mind of the universe mechanism is creative spirit-mind (even the mindedness of the Infinite), it can never be discovered or discerned by the lower-level minds of the universe, much less by the *lowest* mind of all, the human. The evolving animal mind, while naturally God-seeking, is not alone and of itself inherently God-knowing.

12. PATTERN AND FORM — MIND DOMINANCE

42:12.1 (483.1) The evolution of mechanisms implies and indicates the concealed presence and dominance of creative mind. The ability of the mortal intellect to conceive, design, and create automatic mechanisms demonstrates the superior, creative, and purposive qualities of man's mind as the dominant influence on the planet. Mind always reaches out towards:

- 42:12.2 (483.2) 1. Creation of material mechanisms.
- 42:12.3 (483.3) 2. Discovery of hidden mysteries.
- 42:12.4 (483.4) 3. Exploration of remote situations.
- 42:12.5 (483.5) 4. Formulation of mental systems.
- 42:12.6 (483.6) 5. Attainment of wisdom goals.
- 42:12.7 (483.7) 6. Achievement of spirit levels.
- 42:12.8 (483.8) 7. The accomplishment of divine destinies —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42:12.9 (483.9) Mind is always creative. The mind

모론시아인, 영(靈) 상승자, 또는 완결성 달성자의 정신 재능은, 살아있는 피조물 정체성에 알맞고 쓸모 있는 몸을 산출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그러나 인격체가 현존하는 현상이나 정체성의 원형은, 물리적인,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에너지가 형태화된 것이 아니다. 인격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원형** 양상이며; 그것은 에너지들의 **배합**을 의미하고, 이것에 생명 및 움직임을 더한 것이 피조물 실존의 **자동작용**이다.

심지어 영 존재에게도 형태가 있으며, 이 영 형태는(곧 원형은) 실재한다. 심지어 가장 높은 유형의 영 인격체도 형태를 갖고 있다--**유란시아** 필사자 육신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인격 현존을 갖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존재가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 법칙에 소수의 예외가 있다:**사고 조율사**는 필사 동역자의 생존하는 혼과 융합할 때까지 형태가 없는 듯하다. **단독 사자, 영감된 삼위일체 영,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인력 사자, 초월 기록원**, 그리고 어떤 다른 존재들 역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예외적 소수이며; 거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특색이 있고, 식별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진정한 인격 형태를 소유한다.

시공우주 정신의 접촉과 보조 정신_영들의 사역이, 진화하는 인간을 위해 합당한 육체적 장막(帳幕)을 진화시킨다.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정신도, 모든 필사 생존자를 위해 모론시아 형태를 개별화시킨다. 필사자의 육신이 각 인간마다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것처럼, 모론시아 형태도 그것을 지배하는 창의적 정신에 알맞게 특성을 갖고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어떤 두 인간 육체든지 서로 다른 것처럼, 어떤 두 모론시아 형태도 같지 않다. 획일적인 모론시아 물질을,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후원하고, 시중드는 스라빔이 제공하며, 이것을 가지고 모론시아 생명체는 비로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론시아 생애가 끝나면, 영 형태도 똑같이 다양하고, 인격있으며, 각자의 영_정신 내주자의 특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질 세계에서 너희는 육체가 영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졌다고 간주한다. 물질적 눈은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혼의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이고, 정신은 건축가이며, 육신은 물질로 된 건물이다.

물리적, 영적, 및 정신적 에너지는, 그 자체로 그 순수한 상태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주의 현실처럼 충분히 상호작용하지는 않는다. **낙원**에서는 이 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하보나**에서는 조정되며, 한편 활동이 유한한 우주 수준에서는,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지배의 모든 범

endowment of an individual animal, mortal, morontian, spirit ascender, or finality attainer is always competent to produce a suitable and serviceable body for the living creature identity. But the presence phenomenon of a personality or the pattern of an identity, as such, is not a manifestation of energy, either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The personality form is the *pattern* aspect of a living being; it connotes the *arrangement* of energies, and this, plus life and motion, is the *mechanism* of creature existence.

42:12.10 (483.10) Even spirit beings have form, and these spirit forms (patterns) are real. Even the highest type of spirit personalities have forms — personality presences in every sense analogous to Urantia mortal bodies. Nearly all beings encountere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possessed of forms. But there are a few exceptions to this general rule: Thought Adjusters appear to be without form until after fusion with the surviving souls of their mortal associates. Solitary Messengers, Inspired Trinity Spirits,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Gravity Messengers, Transcendental Recorders, and certain others are also without discoverable form. But these are typical of the exceptional few; the great majority have bona fide personality forms, forms which are individually characteristic, and which are recognizable and personally distinguishable.

42:12.11 (483.11) The liaison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evolve a suitable physical tabernacle for the evolving human being. Likewise does the morontia mind individualize the morontia form for all mortal survivors. As the mortal body is personal and characteristic for every human being, so will the morontia form be highly individual and adequately characteristic of the creative mind which dominates it. No two morontia forms are any more alike than any two human bodies.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sponsor, and the attending seraphim provide, the undifferentiated morontia material wherewith the morontia life can begin to work. And after the morontia life it will be found that spirit forms are equally diverse, personal, and characteristic of their respective spirit-mind indwellers.

42:12.12 (483.12) On a material world you think of a body as having a spirit, but we regard the spirit as having a body. The material eyes are truly the windows of the spirit-born soul. The spirit is the architect, the mind is the builder, the body is the material building.

42:12.13 (484.1) Physical, spiritual, and mindal energies, as such and in their pure states, do not fully interact as actuals of the phenomenal universes. On Paradise the three energies are co-ordinate, in Havona co-ordinated, while in the universe levels of finite activities there must be

위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의 비인격적 상황에서는,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_정신 기능이 신성한 목적과 최상의 행동에 가까이 갈수록, 영 국면이 더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궁극 수준에서는 영_정신의 지배가 거의 완벽하게 될 수도 있다. 절대 수준에서는 영이 확실히 지배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신성한 영 실체가 현존하는 곳은 어디든지, 진짜 영_정신이 작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만드시 그 영 실체의 물질 사본(寫本), 즉 물리적 사본이 만드시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창조하는 실체는 영이며;그 물리적 사본은 영 실체가 시_공간에 반영된 것, 즉 영_정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물리적 반응이다.

정신은 보편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정신이 영의 궁극적 전면통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필사적 사람의 경우에, 영의 지시에 자신을 자유롭게 맡기는 정신만이, **지존자**, **궁극자**, 및 **절대자**:즉 **무한자**의, 영원한 영 세계에 불멸하는 자녀로서, 필사자의 시_공간 실존을 거치면서 생존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네바돈**에서 근무하는 **강력한 사자**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제시했음]

encountered all ranges of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dominance. In nonpersonal situations of time and space, physical energy seems to predominate, but it also appears that the more nearly spirit-mind function approaches divinity of purpose and supremacy of action, the more nearly does the spirit phase become dominant; that on the ultimate level spirit-mind may become all but completely dominant. On the absolute level spirit certainly is dominant. And from there on out through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wherever a divine spirit reality is present, whenever a real spirit-mind is functioning, there always tends to be produced a material or physical counterpart of that spirit reality.

42:12.14 (484.2) The spirit is the creative reality; the physical counterpart is the time-space reflection of the spirit reality, the physical repercussion of the creative action of spirit-mind.

42:12.15 (484.3) Mind universally dominates matter, even as it is in turn responsive to the ultimate overcontrol of spirit. And with mortal man, only that mind which freely submits itself to the spirit direction can hope to survive the mortal time-space existence as an immortal child of the eternal spirit world of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the Infinite.

42:12.16 (484.4)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on duty in Nebadon and by the request of Gabriel.]

제43편. 성좌

⇨ 042

유란시아 책

044 ⇨

II 부. 지방우주

제43편

성좌

섹션

소개

1. 성좌 본부
2. 성좌 정부
3. 노라티아덱의 지고자
4. 산상 집회--충실 항존자
5. 루시퍼 반역 후 에덴시아 아버지
6. 하나님의 동산
7. 유니비타시아
8. 에덴시아의 훈련 세계
9. 에덴시아 시민권

PAPER 43

THE CONSTELLATION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2.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3.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 Mount Assembly — The Faithful of Days
5. The Edentia Fathers since the Lucifer Rebellion
6. The Gardens of God
7. The Univitatia
8. The Edentia Training Worlds
9. Citizenship on Edentia

소개

유란시아는 **네바돈**의 **노라티아덱**에 서 **사타니아**의 606_번으로 대개 알려져 있는데, **사타니아** 지역 체계에서 606번째로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라는 의미이며, 이 체계는 **네바돈** 지방우주의 100개 성좌 가운데 하나인,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에 자리잡고 있다. 성좌는 지방우주의 1차 구획인데, 그 통치자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 체계를, **살빙톤**에 있는 지방우주의 중앙 행정부에, 그리고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행정부에, 반사성{反射性}으로 연결시킨다.

너희가 속한 성좌의 정부는, 771개의 건축양식 구체 무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거대한 것이 **에덴시아**, 즉 **노라티아덱**의 **지고자**인 **성좌 아버지**들의 행정부가 있는 자리다. **에덴시아** 자체는 너희 세계보다 약 100배에 이른다. **에덴시아**를 감싸는 70개의 주요 구체는 **유란시아**보다 약 10배의 크기이며, 한편 이 주요 구체들마다 그 주위를 도는 10개의 위성은 **유란시아**의 크기와 거의 같다. 771개의 이 권

INTRODUCTION

43:0.1 (485.1) URANTIA is commonly referred to as 606 of Satania in Norlatiadek of Nebadon, meaning the six hundred sixth inhabited world in the local system of Satania, situated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one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Constellations being the primary divisions of a local universe, their rulers link the local systems of inhabited worlds to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on Salvington and by reflectivity to the superadministr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43:0.2 (485.2) The government of your constellation is situated in a cluster of 771 architectural spheres, the centermost and largest of which is Edentia, the sea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Edentia itself is approximately one hundred times as large as your world. The seventy major spheres surrounding Edentia are about ten times the size of Urantia, while the ten satellites which revolve

축양식 구체는, 크기에서 다른 성좌들의 건축양식 구체에 필적할 만하다.

에덴시아의 시간 계산과 거리 측정은 **살빙톤**의 것과 같으며, 우주 수도{首都} 구체들과 마찬가지로, 성좌 본부 세계는 모든 계층의 천상의 지성체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인격체들은 우주 경영과 관련해서 설명된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감독관 스라빔, 즉 지방우주 천사 중에서 셋째 계층이 성좌를 돕는 일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수도 구체에 본부를 두며, 둘러싼 모론시아_훈련 세계들을 광범하게 돌본다. **노라티아덱**에서, 70개의 주요 구체를 비롯하여 700개의 부속{附屬} 위성에는, 성좌의 영구 시민인 유니비타시아들이 거주한다. 다양한 집단의 원주민 생명체가 이 모든 건축양식 세계를 온전하게 경영하는데, 그들 가운데 과반수가 계시되지 않지만, 유능한 스피롱가와 아름다운 스포르나기아를 포함한다. 너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성좌의 모론시아 생애는, 모론시아_훈련 체제에서 중간_지점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동시에 이상적이다.

1. 성좌 본부

에덴시아에는, 모론시아 생명을 지니고 영적 영광이 널리 펼쳐진 자연 물질이 광대하게 솟아오른, 매혹적인 고지{高地}가 많이 있지만, **유란시아**에서 보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산맥은 없다. 수만개의 빛나는 호수와 수천 개의 상호 연결된 냇물이 거기에 있지만, 큰 바다 또는 급류가 흐르는 강은 없다. 오직 고지에만 지표에서 흐르는 이 냇물이 없다.

에덴시아 및 비슷한 건축양식 구체들에 있는 물은, 진화 행성의 물과 다름없다. 그런 구체의 물 체계는 지상에 흐르는 동시에 지하에도 흐르며, 습기가 계속 순환한다. 이 다양한 수로{水路}를 따라 **에덴시아**를 일주{一周}할 수 있지만, 주요 운송은 항공로{航空路}를 통해서 이뤄진다. 영 존재들은 구체의 표면 위를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으며, 한편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 존재는, 공중을 통과해서 이동하기 위해, 물질적인 수단과 약간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에덴시아 및 관련된 세계들에는 진짜 대기가 있는데, 그런 건축양식 피조세계의 특질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세 기체의 혼합물이며, **유란시아** 대기의 두 요소를 포함하고, 모론시아 피조물의 호흡에 맞는 모론시아 기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around each of these seventy worlds are about the size of Urantia. These 771 architectural spheres are quite comparable in size to those of other constellations.

43:0.3 (485.3) Edentia time reckoning and distance measurement are those of Salvington, and like the spheres of the universe capital,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are fully supplied with all orders of celestial intelligences. In general, these personalities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ose described in connection with the universe administration.

43:0.4 (485.4) The supervisor seraphim, the third order of local universe angel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constellations. They make their headquarters on the capital spheres and minister extensively to the encircling morontia-training worlds. In Norlatiadek the seventy major spheres, together with the seven hundred minor satellites, are inhabited by the univitalia,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constellation. All these architectural worlds are fully administered by the various groups of native life, for the greater part unrevealed but including the efficient spironga and the beautiful spornagia. Being the mid-point in the morontia-training regime, as you might suspect, the morontia life of the constellations is both typical and ideal.

1.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43:1.1 (485.5) Edentia abounds in fascinating highlands, extensive elevations of physical matter crowned with morontia life and overspread with spiritual glory, but there are no rugged mountain ranges such as appear on Urantia.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sparkling lakes and thousands upon thousands of interconnecting streams, but there are no great oceans nor torrential rivers. Only the highlands are devoid of these surface streams.

43:1.2 (486.1) The water of Edentia and similar architectural spheres is no different from the water of the evolutionary planets. The water systems of such spheres are both surface and subterranean, and the moisture is in constant circulation. Edentia can be circumnavigated via these various water routes, though the chief channel of transportation is the atmosphere. Spirit beings would naturally travel above the surface of the sphere, while the morontia and material beings make use of material and semimaterial means to negotiate atmospheric passage.

43:1.3 (486.2) Edentia and its associated worlds have a true atmosphere, the usual three-gas mixture which is characteristic of such architectural creations, and which embodies the two elements of Urantian atmosphere plus that morontia gas

대기가 물질인 동시에 모론시아지만, 폭풍이나 태풍은 없으며, 여름이나 겨울도 없다. 대기의 불안정이나 계절의 변화가 없으므로, 특별하게 창조된 이 세계들에서는 어디든지 야외에도 치장할 수 있다.

에덴시아의 고지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며, 그 아름다움은, 길이와 폭 전체에 많이 퍼져있는 끝없이 풍성한 생명체로 장식돼 있다. 약간 외떨어진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이 고지에는 피조물의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물질 장식물과 모론시아 장식물은 거주하는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 작은 고지들은 특별한 거주민의 집터이며, 생물학적 예술과 모론시아 예술로 아름답게 장식돼 있다.

일곱째 고지대의 정상에는 **에덴시아** 부활실이 위치하는데, 그 안에서는 변경된 2차 상승 계층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깨어난다. 피조물 재조립이 일어나는 이 방들은 **멜기세덱**의 감독을 받는다. **에덴시아**에 있는 첫 영접{迎接} 구체에도, (**살빙톤**에 가까운 **멜기세덱** 행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활실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변경된 상승 계층의 필사자들이 재조립된다.

멜기세덱들은 또한 **에덴시아**에서 두 특별 학부를 유지한다. 하나는 비상대책 학교인데, **사타니아** 반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데 몰두한다. 다른 하나는 증여 학교인데, **미가엘**의 최종 증여가 **노라티아덱** 세계 가운데 하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달하는 일에 전적으로 배정돼 있다. 후자{後者}의 이 학부는 거의 4만 년 전에 세워졌는데, **미가엘**이 자신을 최종적으로 증여할 세계로 **유란시아**가 선택됐음을 발표하자마자 세워졌다.

에덴시아의 영접 지역인 유리바다는 행정부 중심지 근처에 있으며, 본부 원형극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70개 분야의 성과 직무를 위해서, 통치하는 중심지들이 이 지역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에덴시아**의 절반은 70개의 삼각형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은 각자 구역의 본부 건물에 집중돼 있다. 이 구역의 나머지는 하나의 방대한 자연 공원, 즉 **하나님**의 동산이다.

내가 주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시찰하도록 전체 행성이 열려있음에도, 너의 시간 대부분을 경영 삼각지{三角地}에서 보내게 될 것인데, 그 삼각지의 번호는 내가 현재 거주하는 세계의 번호와 같다. 너는 입법{立法} 집회에 참관인으로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 거주자들에게 **에덴시아**에서 배정된 모론시아 지역은, 35번째 삼각지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36번째 삼각지에 자리 잡은 완결성취

suitable for the respiration of morontia creatures. But while this atmosphere is both material and morontial, there are no storms or hurricanes; neither is there summer nor winter. This absence of atmospheric disturbances and of seasonal variation makes it possible to embellish all outdoors on these especially created worlds.

43:1.4 (486.3) The Edentia highlands are magnificent physical features, and their beauty is enhanced by the endless profusion of life which abounds throughout their length and breadth. Excepting a few rather isolated structures, these highlands contain no work of creature hands. Material and morontial ornamentations are limited to the sites of dwelling areas. The lesser elevations are the sites of special residences and are beautifully embellished with both biologic and morontia art.

43:1.5 (486.4) Situated on the summit of the seventh highland range are the resurrection halls of Edentia, wherein awaken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secondary modified order of ascension. These chambers of creature reassembly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 first of the receiving spheres of Edentia (like the planet Melchizedek near Salvington) also has special resurrection halls, wherein the mortals of the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are reassembled.

43:1.6 (486.5) The Melchizedeks also maintain two special colleges on Edentia. One, the emergency school,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growing out of the Satania rebellion. The other, the bestowal school, is dedicated to the mastery of the new problems arising out of the fact that Michael made his final bestowal on one of the worlds of Norlatiadek. This latter college was established almost forty thousand years ago,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by Michael that Urantia had been selected as the world for his final bestowal.

43:1.7 (486.6) The sea of glass, the receiving area of Edentia, is near the administrative center and is encircled by the headquarters amphitheater. Surrounding this area are the governing centers for the seventy divisions of constellation affairs. One half of Edentia is divided into seventy triangular sections, whose boundaries converge at the headquarters buildings of their respective sectors. The remainder of this sphere is one vast natural park, the gardens of God.

43:1.8 (486.7) During your periodic visits to Edentia, though the entire planet is open to your inspection, most of your time will be spent in that administrative triangle whose number corresponds to that of your current residential world. You will always be welcome as an observer in the legislative assemblies.

43:1.9 (486.8) The morontia area assigned to ascending mortals resident on Edentia is located in the mid-zone of the thirty-fifth triangle adjoining

자들의 본부 근처다. 유니비타시아의 일반 본부는, 모론시아 시민의 거주 예정지에 바로 인접한, 34번째 삼각지의 중앙_지역에 있는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열로 볼 때, 천상의 생명체 중에서 적어도 70개 주요 부문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70개 삼각지역은, 각각 모론시아 훈련을 담당하는 70개 주요 구체 가운데 어느 하나와 서로 연결돼 있다.

에덴시아의 유리바다는, 둘레가 약 100마일에 이르고 깊이가 약 30마일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둥근 수정{水晶}이다. 이 웅장한 수정은, 그 구체의 바깥 지점으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운송 스라빔 및 기타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광장 역할을 하며; 그런 유리바다는 운송 스라빔의 착륙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이런 종류의 수정 광장은, 거의 모든 건축양식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장식하는 가치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소집된 집단들에게 연방우주 반사성을 제시하는 일에, 그리고 공간의 흐름을 변경시키고, 들어오는 다른 물리적_에너지 흐름을 적응시키려고 에너지를_변형시키는 기법에, 한 요소로서 활용된다.

2. 성좌 정부

성좌는 지방우주의 자치 단위인데, 각 성좌는 자체의 입법 행위에 따라서 경영된다. **네바돈**의 법정인 우주 직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할 때, 모든 내부 문제는, 대상이 되는 성좌에서 통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판결된다. 지역 체계 경영자들이, 성좌의 입법 조치와 함께, **살빙톤**의 이 사법 판결을 실행한다.

성좌는 이런 식으로, 입법, 즉 법을_만드는 단위로서 작용하며, 한편 지역 체계는, 행정, 즉 집행 단위로서 이바지한다. **살빙톤** 정부는 사법을 담당하고 조정하는 최고 권세다.

최고 사법 기능이 지방우주의 중앙 행정부에 있는데, 각 성좌 본부에는, 종속적이지만 두 개의 주요 법정, 즉 **멜기세덱** 협의회 및 **지고자** 법정이 있다.

모든 사법 문제는 **멜기세덱**들의 협의회에서 먼저 조사 받는다. 진화하는 행성들과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특정한 필수 체험을 이미 했던, 이 계층 중에서 열두 명이 증거를 검사하고 해명을 검토하며 잠정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는데, 이 판결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s, situated in the thirty-sixth triangle.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univatatia occupies an enormous area in the mid-region of the thirty-fourth triangle immediately adjoining the residential reservation of the morontia citizens. From these arrangements it may be seen that provision is made for the accommodation of at least seventy major divisions of celestial life, and also that each of these seventy triangular areas is correlated with some one of the seventy major spheres of morontia training.

43:1.10 (487.9) The Edentia sea of glass is one enormous circular crystal about one hundred miles in circumference and about thirty miles in depth. This magnificent crystal serves as the receiving field for all transport seraphim and other beings arriving from points outside the sphere; such a sea of glass greatly facilitates the landing of transport seraphim.

43:1.11 (487.2) A crystal field on this order is found on almost all architectural worlds; and it serves many purposes aside from its decorative value, being utilized for portraying superuniverse reflectivity to assembled groups and as a factor in the energy-transformation technique for modifying the currents of space and for adapting other incoming physical-energy streams.

2.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43:2.1 (487.3) The constellations are the autonomous units of a local universe, each constellation being administered according to its own legislative enactments. When the courts of Nebadon sit in judgment on universe affairs, all internal matters are adjud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prevailing in the constellation concerned. These judicial decrees of Salvington, together with the legislative enactments of the constellations, are executed by the administrators of the local systems.

43:2.2 (487.4) Constellations thus function as the legislative or lawmaking units, while the local systems serve as the executive or enforcement units. The Salvington government is the supreme judicial and co-ordinating authority.

43:2.3 (487.5) While the supreme judicial function rests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there are two subsidiary but major tribunals at the headquarters of each constellation, the Melchizedek council and the court of the Most High.

43:2.4 (487.6) All judicial problems are first reviewed by the council of the Melchizedeks. Twelve of this order who have had certain requisite experience on the evolutionary planets an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orlds are empowered to review evidence, digest pleas, and formulate provisional

은 **지고자**, 즉 통치하는 **성좌 아버지**의 법정으로 전달된다. 후자{後者} 법정의 이 필사자 부서는 일곱 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모두 상승하는 필사자다. 너희가 우주에서 더 올라갈수록, 더 확실히, 너희는 자신과 같은 종류인 그들에게 판결 받게 될 것이다.

성좌 입법 기관은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성좌의 입법 계획표는, 상승자들로 구성된 하원{下院}에서 시작되는데, 한 명의 완결성취자가 이를 주관하며, 대표하는 1,000명의 필사자로 이뤄져 있다. 각 체계는 이 심의회에 소속될 열 명의 요원을 지명한다. **에덴시아**에서는 이 기구가 현재 온전히 구성돼 있지 않다.

입법의원들의 중앙 회의소는, 스랍 무리와 그 동역자들,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다른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의 총원은 100명이며, 그런 존재들이 성좌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는 감독 인격체들이 그들을 지명한다.

성좌 입법의원들 중에서, 자문 기관, 즉 최고 기관은 동료들의 의회--곧 신성한 **아들**들의 의회--로 구성된다. **지고자 아버지**들이 이 단체를 선발하며, 총원은 열 명이다. 오직 특별한 체험을 가진 **아들**들만이 이 상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상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집단이며, 입법 집회의 두 하부{下部} 부서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이바지한다.

입법의원들의 통합된 협의회는, 성좌 심의 집회의 독립된 이 지부{支部}들에서 온 세 명의 요원으로 구성되며, 통치하는 하급{下級} **지고자**가 이를 관장한다. 이 집단은 모든 법령의 최종 형식을 인가하고, 방송인들이 그것을 공표하도록 허락한다. 이 최상급 위원회의 승인은, 입법된 규정을 그 영역의 법이 되게 하며; 그들의 활동은 최종적이다. **에덴시아**에서 선포된 법은 **노라티아덱** 전체의 기본법을 이룬다.

3. 노라티아덱의 지고자

성좌의 통치자는, 지방우주 아들신분 중에서 **보론다덱** 계층에 속한다. 우주에서 현역 근무로 성좌 통치자 또는 다른 자리에 임명될 때, 이 **아들**들은 **지고자**로 알려지는데, 그들이 지방우주에서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선견지명이 있고 영리한 충성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영상 지혜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개인적 성실성과 집단 충성심은 한 번도 의심 받은 적이 없으며; **보론다덱 아들**들이 불만을 품는 일은 **네바돈**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가브리엘이, **네바돈**의 각 성좌마다 적어도 세

verdicts, which are passed on to the court of the Most High, the reigning Constellation Father. The mortal division of this latter tribunal consists of seven judges, all of whom are ascendant mortals. The higher you ascend in the universe, the more certain you are to be judged by those of your own kind.

43:2.5 (487.7) The constellation legislative body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legislative program of a constellation originates in the lower house of ascenders, a group presided over by a finaliter and consisting of one thousand representative mortals. Each system nominates ten members to sit in this deliberative assembly. On Edentia this body is not fully recruited at the present time.

43:2.6 (487.8) The mid-chamber of legislators is composed of the seraphic hosts and their associates, other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is group numbers one hundred and is nominated by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who preside over the various activities of such beings as they function within the constellation.

43:2.7 (488.1) The advisory or highest body of constellation legislators consists of the house of peers — the house of the divine Sons. This corps is chosen by the Most High Fathers and numbers ten. Only Sons of special experience may serve in this upper house. This is the fact-finding and timesaving group which very effectively serves both of the lower division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43:2.8 (488.2) The combined council of legislators consists of three members from each of these separate branches of the constellation deliberative assembly and is presided over by the reigning junior Most High. This group sanctions the final form of all enactments and authorizes their promulgation by the broadcasters. The approval of this supreme commission renders legislative enactments the law of the realm; their acts are final. The legislative pronouncements of Edentia constitute the fundamental law of all Norlatiadek.

3.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3:3.1 (488.3) The rulers of the constellations are of the Vorondadek order of local universe sonship. When commissioned to active duty in the universe as constellation rulers or otherwise, these Sons are known as the *Most Highs* since they embody the highest administrative wisdom, coupled with the most farseeing and intelligent loyalty, of all the orders of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Their personal integrity and their group loyalty have never been questioned; no disaffection of the Vorondadek Sons has ever occurred in Nebadon.

43:3.2 (488.4) At least three Vorondadek Sons are

명의 **보론다덱 아들**을 **지고자**로 임명한다. 이 세 명 중에서 주관하는 요원이 **성좌 아버지**로 알려지며, 그의 두 동역자는 **상급{上級} 지고자**와 **하급{下級} 지고자**로 알려진다. **성좌 아버지**는 표준 시간으로 10,000년(곧 **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0,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전에 하급 동역자로서, 그리고 상급 동역자로서, 같은 기간 근무한 적이 있다.

시편 기자(記者)는, 세 명의 **성좌 아버지**가 **에덴시아**를 통치하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거주지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했다.“하나의 강이 흐르고 그 물줄기들은 **하나님**의 도성, 즉 **지고자**들의 장막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찬란하게 장식할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란시아**에는 다양한 우주 통치자에 대해 큰 혼동이 있었다. 후대의 여러 선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희미하고 불분명한 부족{部族} 신격들을 **지고자 아버지**와 혼동했다. 그 후에, **히브리인**은 이 천상의 통치자들을 하나의 혼합된 **신격**으로 섞어 버렸다. 어떤 선생은 **지고자**들이 **최상급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며, 그래서 그는 “**지고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그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란시아**의 기록에서는, 때때로 “**지고자**”라는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지고자**가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치하며, 뜻하는 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했다.

성좌 아버지는 인간거주 행성의 개인들에게는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인간거주 세계들의 모든 필사자 종족과 국가 집단에 관해서 매우 깊이 관여하는, 성좌의 입법부 및 입법 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비록 성좌 체제가 너희와 우주 행정부 사이에 위치하더라도, 개인으로서 너희는 평상시에 성좌 정부와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큰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지역 체계, 즉 **사타니아**에 집중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유란시아**는 성좌 통치자들에게 가깝게 관련돼 있는데, **루시퍼** 반역으로 조성된 어떤 체계 및 행성의 상황 때문이다.

에덴시아 지고자들은, **루시퍼** 탈퇴가 일어났을 때, 반역한 세계들로부터 행성 권한의 어떤 국면들을 압류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계속 행사해왔으며, 이 불안정한 세계들의 통제권을 말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인가한 지 오래됐다.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이 떠맡은 관할권을 의심할 여지없이 계속 행사할 것이다. 충성스런 체계에서는 대개, 이런 권세 대부분이 **체계 주권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유란시아**는 **지고자**들

commissioned by Gabriel as the Most Highs of each of the Nebadon constellations. The presiding member of this trio is known as the *Constellation Father* and his two associates as the *senior Most High* and the *junior Most High*. A Constellation Father reigns for ten thousand standard years (about 50,000 Urantia years), having previously served as junior associate and as senior associate for equal periods.

43:3.3 (488.5) The Psalmist knew that Edentia was ruled by three Constellation Fathers and accordingly spoke of their abode in the plural: “There is a river, the streams whereof shall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most holy place of the tabernacles of the Most Highs.”

43:3.4 (488.6) Down through the ages there has been great confusion on Urantia regarding the various universe rulers. Many later teachers confused their vague and indefinite tribal deities with the Most High Fathers. Still later, the Hebrews merged all of these celestial rulers into a composite Deity. One teacher understood that the Most Highs were not the Supreme Rulers, for he said,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In the Urantia records it is very difficult at times to know exactly who is referred to by the term “Most High.” But Daniel fully understood these matters. He said,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soever he will.”

43:3.5 (488.7) The Constellation Fathers are little occupied with the individuals of an inhabited planet, but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ose legislative and lawmaking functions of the constellations which so greatly concern every mortal race and national group of the inhabited worlds.

43:3.6 (489.1) Although the constellation regime stands between you and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s individuals you would ordinarily be little concerned with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Your great interest would normally center in the local system, Satania; but temporarily, Urantia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ellation rulers because of certain system and planetary conditions growing out of the Lucifer rebellion.

43:3.7 (489.2) The Edentia Most Highs seized certain phases of planetary authority on the rebellious worlds at the time of the Lucifer secession. They have continued to exercise this power, and the Ancients of Days long since confirmed this assumption of control over these wayward worlds. They will no doubt continue to exercise this assumed jurisdiction as long as Lucifer lives. Much of this authority would ordinarily, in a loyal system, be invested in the System Sovereign.

43:3.8 (489.3) But there is still another way in which

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 **창조주 아들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 증여 사명에 들어갔을 때, **루시퍼**의 후임자가 지역 체계에서 완전한 권세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엘** 증여와 관련된 모든 **유란시아** 직무를, **노라티아덱**의 **지고자**들이 직접 감독했다.

4. 산상 집회—충실 항존자

가장 거룩한 집회의 동산은, **에덴시아**에서 활동하는 **낙원 삼위일체** 대행자인,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다.

이 **충실 항존자**는 **낙원**의 **삼위일체 아들**이며, 본부 세계가 창조된 이래, **임마누엘**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에덴시아**에 현존해 왔다. **충실 항존자**는, **성좌 아버지**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의 오른편에 항상 있지만, 요청받지 않는 한, 결코 충고를 제시하지 않는다. **낙원**의 높은 **아들**들은, 그런 영역의 활동하는 통치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외에는, 어떤 지방우주 직무 수행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동 항존자**와 **창조주 아들**의 관계는 모두, **충실 항존자**와 **성좌**의 **지고자**들의 관계와 같다.

에덴시아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는, 우주 바깥의 통신 및 첩보를 맡은 **낙원** 체계의 **성좌** 중심지다. 이 **삼위일체 아들**은, **하보나** 및 **낙원** 인격체들로 구성된 참모진과 함께, 감독하는 **합동 항존자**와 접촉하면서, 우주들 전체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층과 직접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가장 거룩한 그 산은, 절묘하게 아름답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지고자**들의 중앙 거주지, 그리고 **보론다덱 아들**들의 거주 설비를 포함하는 주변의 70개 구조물과 비교할 때, **낙원 아들**의 실제 거주지는 수수하다. 이 설비들은 오직 주거지로만 사용되며; 성좌의 직무가 처리되는 광대한 경영 본부 건물들에서 아주 분리돼 있다.

에덴시아에 있는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이 거주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낙원 집회의 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봉헌된 이 고지대(高地帶)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완전한 10억 **하보나**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낙원**의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향하여 진보하는 필사자의 길고 흥미로운 여행에 대해, 이 **낙원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바로 **산상 집회**의 이 특별한 모임에서,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Urantia became peculiarly related to the Most Highs. When Michael, the Creator Son, was on his terminal bestowal mission, since the successor of Lucifer was not in full authority in the local system, all Urantia affairs which concerned the Michael bestowal were immediately supervised by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 MOUNT ASSEMBLY—THE FAITHFUL OF DAYS

43.4.1 (489.4) The most holy mount of assembly is the dwelling place of the Faithful of Days,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who functions on Edentia.

43.4.2 (489.5) This Faithful of Days is a Trinity Son of Paradise and has been present on Edentia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Immanuel since the crea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 Ever the Faithful of Days stands at the right hand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o counsel them, but never does he proffer advice unless it is asked for. The high Sons of Paradise never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except upon the petition of the acting rulers of such domains. But all that a Union of Days is to a Creator Son, a Faithful of Days is to the Most Highs of a constellation.

43.4.3 (489.6) The residence of the Edentia Faithful of Days is the constellation center of the Paradise system of extrauniverse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These Trinity Sons, with their staffs of Havona and Paradise personalities, in liaison with the supervising Union of Days, are in direct and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ir order throughout all the universes, even to Havona and Paradise.

43.4.4 (489.7) The most holy mount is exquisitely beautiful and marvelously appointed, but the actual residence of the Paradise Son is modest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abode of the Most Highs and the surrounding seventy structures comprising the residential unit of the Vorondadek Sons. These appointments are exclusively residential; they are entirely separate from the extensiv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buildings wherein the affairs of the constellation are transacted.

43.4.5 (489.8) The residence of the Faithful of Days on Edentia is located to the north of these residences of the Most Highs and is known as the “mount of Paradise assembly.” On this consecrated highland the ascending mortals periodically assemble to hear this Son of Paradise tell of the long and intriguing journey of progressing mortals through the one billion perfection worlds of Havona and on to the indescribable delights of

중앙우주에서 기원된 다양한 집단의 인격체들과 더 완전히 친하게 된다.

한 때 **사타니아**의 주권자였던 불충한 **루시퍼**는, 확대된 관할권을 요구하는 주장을 발표하면서, 지방우주의 정부 계획에서 아들신분의 모든 우세한 계층을 제거하려고 꾀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결심하면서 말했다: “나는 내 보좌를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위로 높일 것이며; 북쪽 집회 동산에 앉을 것이며; **지고자**처럼 되리라.”

100명의 **체계 주권자**는, 성좌의 복지에 대해 숙고하는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사타니아** 반역이 일어난 후에, **예루셈**의 최고반역자들은, 자신이 이전의 경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시아** 협의회에 늘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고, 그 후에 **네바돈** 전역에서 무제한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이 오만한 뻔뻔스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죄를 선동한 이자들은, 충성스런 **체계 주권자**들의 **에덴시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옛 선생들이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고자**들 앞으로 나아왔고, **사탄** 역시 와서 그들 가운데 참여했다.” 이 글이 어찌다가 그 속에 연관되어 나타나게 됐는가에 상관없이, 이 글은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후에, **노라티아덱** 전역에서 죄와 반역자들이 제거되고 있다. **미가엘**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타락한 **루시퍼**의 동료인 **사탄**은 그런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참여하려고 꾀했지만, 최고반역자들을 적대시하는 감정이 굳어져서, 자비{慈悲}의 문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닫히게 됐고, **사타니아**에 있던 적들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악을 받아들이만한 열린 문이 없게 되자, 죄를 품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전체 **에덴시아**의 마음 문이 **사탄**에 반대하여 닫혔으며; 그는 소집된 **체계 주권자**들에게 만장일치로 거부당했고, **사람의 아들**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루시퍼의 반역 이후로, **충실 항존자**의 주거지 가까운 곳에 새로운 구조물이 마련됐다. 이 임시 건축물은 연락원 **지고자**의 본부이며, 죄와 반역에 대한 **항존자** 계층의 정책과 태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성좌 정부에 대한 충고자로서, **낙원 아들**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Paradise. And it is at these special gatherings on Mount Assembly that the morontia mortals become more fully acquainted with the various groups of personalities of origin in the central universe.

43:4.6 (490.1) The traitorous Lucifer, onetime sovereign of Satania, in announcing his claims to increased jurisdiction, sought to displace all superior orders of sonship in the governmental plan of the local universe. He purposed in his heart, saying: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ons of God; I will sit upon the mount of assembly in the north;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43:4.7 (490.2) The one hundred System Sovereigns come periodically to the Edentia conclaves which deliberate on the welfare of the constellation. After the Satania rebellion the archrebels of Jerusalem were wont to come up to these Edentia councils just as they had on former occasions. And there was found no way to stop this arrogant effrontery until after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and his subsequent assumption of unlimited sovereignty throughout all Nebadon. Never, since that day, have these instigators of sin been permitted to sit in the Edentia councils of the loyal System Sovereigns.

43:4.8 (490.3) That the teachers of olden times knew of these things is shown by the record: “And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Most Highs, and Satan came also and presented himself among them.” And this is a statement of fact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in which it chances to appear.

43:4.9 (490.4) Since the triumph of Christ, all Norlatiadek is being cleansed of sin and rebels. Sometime before Michael's death in the flesh the fallen Lucifer's associate, Satan, sought to attend such an Edentia conclave, but the solidification of sentiment against the archrebels had reached the point where the doors of sympathy were so well-nigh universally closed that there could be found no standing ground for the Satania adversaries. When there exists no open door for the reception of evil, there exists no opportunity for the entertainment of sin. The doors of the hearts of all Edentia closed against Satan; he was unanimously rejected by the assembled System Sovereigns, and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Son of Man “beheld Satan fall as lightning from heaven.”

43:4.10 (490.5) Since the Lucifer rebellion a new structure has been provided near the residence of the Faithful of Days. This temporary edifice is the headquarters of the Most High liaison, who functions in close touch with the Paradise Son as adviser to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in all matters respecting the policy and attitude of the order of Days toward sin and rebellion.

5. 루시퍼 반역 후 에덴시아 아버지

에덴시아에서 **지고자**들의 교대는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중지됐다. 그때 근무하던 동일한 통치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한다. **루시퍼** 및 그 동역자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이 통치자들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한다.

아무튼, 성좌의 현 정부는 **보론다덱** 계층의 12명 **아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돼 왔다. 이 열두 명은 다음과 같다:

1. 성좌 아버지. **노라티아덱**을 지금 통치하는 **지고자**는 **네바돈**의 **보론다덱** 계열 중에서 617,318_번이다. 그는 **에덴시아**를 책임 맡기 전에 우리 지방우주 전역의 여러 성좌에서 근무했다.

2. 상급 동료 **지고자**.

3. 하급 동료 **지고자**.

4. 충고하는 **지고자**, **미가엘**이 **으뜸 아들**의 신분을 성취한 후에 **미가엘**의 개인적 대리인.

5. 행정관 **지고자**, **루시퍼** 반역 이후로 **에덴시아**에 계속 주둔하는, **가브리엘**의 개인적 대리인.

6. 행성 참관인들의 우두머리인 **지고자**,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에 주둔하는 **보론다덱** 참관인들의 지휘자.

7. 심판하는 **지고자**, 성좌에서 반역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론다덱 아들**.

8. 비상사태 경영 **지고자**, **노라티아덱** 입법부의 비상사태 법령을, **사타니아**의 반역으로_고립된 세계들에 적용시키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론다덱 아들**.

9. 중재하는 **지고자**, 성좌의 일상적인 경영과 **유란시아**에 대한 특별 중여 조정을 조화시키도록 배정된 **보론다덱 아들**. **유란시아**에서 어떤 천사장 활동 및 수많은 다른 불규칙한 보살핌의 출현이, **예루셈**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별 활동과 함께, 이 **아들**의 기능발휘를 필요로 한다.

10. 법무관 **지고자**, **사타니아** 반역에 따른 혼란으로부터 생긴, **노라티아덱**의 특별한 문제를 조정하는 데 전념하는 비상사태 법정의 우두머리.

5. THE EDENTIA FATHERS SINCE THE LUCIFER REBELLION

43:5.1 (490.6) The rotation of the Most Highs on Edentia was suspend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We now have the same rulers who were on duty at that time. We infer that no change in these rulers will be made until Lucifer and his associates are finally disposed of.

43:5.2 (490.7) The present government of the constellation, however,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welve Sons of the Vorondadek order. These twelve are as follows:

43:5.3 (490.8) 1. The Constellation Father. The present Most High ruler of Norlatiadek is number 617,318 of the Vorondadek series of Nebadon. He saw service in many constellations throughout our local universe before taking up his Edentia responsibilities.

43:5.4 (490.9) 2. The senior Most High associate.

43:5.5 (491.1) 3. The junior Most High associate.

43:5.6 (491.2) 4. The Most High adviser,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Michael since his attainment of the status of a Master Son.

43:5.7 (491.3) 5. The Most High executive,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Gabriel stationed on Edentia ever since the Lucifer rebellion.

43:5.8 (491.4) 6. The Most High chief of planetary observers, the director of the Vorondadek observers stationed on the isolated worlds of Satania.

43:5.9 (491.5) 7. The Most High referee, the Vorondadek Son intrusted with the duty of adjusting all difficulties consequential to rebellion within the constellation.

43:5.10 (491.6) 8. The Most High emergency administrator, the Vorondadek Son charged with the task of adapting the emergency enactments of the Norlatiadek legislature to the rebellion-isolated worlds of Satania.

43:5.11 (491.7) 9. The Most High mediator, the Vorondadek Son assigned to harmonize the special bestowal adjustments on Urantia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 The presence of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and numerous other irregular ministrations on Urantia, together with the special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n Jerusem, necessitates the functioning of this Son.

43:5.12 (491.8) 10. The Most High judge-advocate, the head of the emergency tribunal devoted to the adjustment of the special problems of Norlatiadek growing out of the confusion consequent upon the Satania rebellion.

11. 연락관 **지고자**, **에덴시아** 통치자들에게 배속됐지만, 반역과 피조물 불충성에 관계된 문제를 관리하면서 추구할 최고의 과정에 관해서, **충실 항존자**와 함께 특별한 충고자로 임명된 **보론다덱 아들**.

12. 지휘하는 **지고자**, **에덴시아**의 비상사태 협의회의 의장. **사타니아** 동란으로 인해 **노라티아덱**에 배정된 모든 인격체는 비상사태 협의회에 소속되며, 그들을 관장하는 관리{官吏}는 비범한 체험을 가진 **보론다덱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보론다덱**, **네바돈**의 사절{使節}, 그리고 **에덴시아**에 역시 거주하는 다른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루시퍼 반역이 있는 후로 계속, **에덴시아** **아버지**들은 **유란시아**를, 그리고 **사타니아**의 다른 고립된 세계들을 특별히 돌봐 왔다. 오래 전에 그 선지자는, 국가의 직무에 **성좌 아버지**들의 통제하는 손길이 있음을 감지했다. “**지고자**가 나라들에게 저희의 유산을 분배하고, **아담**의 아들들을 갈라냈을 때, 그가 민족의 경계선을 정했다.”

격리되거나 고립된 모든 세계에는, 참관인으로서 활동하는 한 명의 **보론다덱 아들**이 있다. 그는 국가들의 직무에 개입하도록 **성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을 때 외에는 행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하는” 이는, 실제로 이 참관인 **지고자**다. **유란시아**는 **노라티아덱**의 고립된 세계 가운데 하나이며, **캘리게스차** 반역 이후로 계속, 한 명의 참관인 **보론다덱**이 이 행성에 항상 주둔해 왔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서 약간물질적인 형태로 사역했을 때, 그는 그때 근무하던 참관인 **지고자**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했는데,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고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지고자**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지고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그가 너의 적들을 네 손에 넘겼다”고 했을 때, **멜기세덱**은 자신과 이 참관인 **지고자**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냈다.

6. 하나님의 동산

체계의 수도{首都}는 물질 및 광물 구조물들로 특별하게 장식돼 있으며, 한편 우주 본부는 영적 영광이 더 반영돼 있지만, 성좌 수도는 모론시아 활동과 살아있는 장식물 가운데 절정이다. 성좌 본부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장식물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생명체의 이 우월성--곤 식물들을 이용한 예술성-- 때문이다.

에덴시아의 약 절반은 **지고자**들의 절묘한 동

43:5.13 (491.9) 11. The Most High liaison, the Vorondadek Son attached to the Edentia rulers but commissioned as a special counselor with the Faithful of Days regarding the best course to pursue in the management of problems pertaining to rebellion and creature disloyalty.

43:5.14 (491.10) 12. The Most High director, the president of the emergency council of Edentia. All personalities assigned to Norlatiadek because of the Satania upheaval constitute the emergency council, and their presiding officer is a Vorondadek Son of extraordinary experience.

43:5.15 (491.11) And this takes no account of the numerous Vorondadeks, envoys of Nebadon constellations, and others who are also resident on Edentia.

43:5.16 (491.12) Ever since the Lucifer rebellion the Edentia Fathers have exercised a special care over Urantia and the other isolated worlds of Satania. Long ago the prophet recognized the controlling hand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the affairs of nations. “When the Most High divided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separated the sons of Adam, he set the bounds of the people.”

43:5.17 (491.13) Every quarantined or isolated world has a Vorondadek Son acting as an observer. He does not participate in planetary administration except when order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the nations. Actually it is this Most High observer who “rules in the kingdoms of men.” Urantia is one of the isolated worlds of Norlatiadek, and a Vorondadek observer has been stationed on the planet ever since the Caligastia betrayal. When Machiventa Melchizedek ministered in semimaterial form on Urantia, he paid respectful homage to the Most High observer then on duty, as it is written,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was the priest of the Most High.” Melchizedek revealed the relations of this Most High observer to Abraham when he said, “And blessed be the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6. THE GARDENS OF GOD

43:6.1 (492.1) The system capitals are particularly beautified with material and mineral constructions, while the universe headquarters is more reflective of spiritual glory, but the capitals of the constellations are the acme of morontia activities and living embellishment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living embellishment is more generally utilized, and it is this preponderance of life — botanic artistry — that causes these worlds to be called “the gardens of God.”

43:6.2 (492.2) About one half of Edentia is devoted to

산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동산은 지방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론시아 창작품에 속한다. 이것은 **노라티아덱**의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유별나게 아름다운 장소가, 왜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지 설명해 준다.

이 장엄한 동산 중앙에는 **지고자**들이 경배 드리는 성소(聖所)가 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음이 분명한데: “**지고자**들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깨끗한 손과 순수한 심성을 가진 자, 자기 혼을 허영심에 들뜨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맹세하지도 않은 자가 아니냐”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고자**들은 이 성소에서, 10일마다 돌아오는 휴일에, **에덴시아** 전체가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묵상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건축양식 세계들은 물질 계층에서 10가지 생명체 형태를 누린다. **유란시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체가 있지만, **에덴시아** 같은 그런 세계에는 10가지 분야의 물질 계층 생명체가 있다. 너희가 이 10가지 분야의 **에덴시아** 생명체를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곧 처음 세 가지를 식물로, 마지막 세 가지를 동물로 분류하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네 가지 형태의 풍부하고 매력적인 생명체의 본성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동물 생명체로 구분될만한 것들조차 진화 세계의 그것과 매우 다른 형태인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의 독특한 성품과 매력적인 본성을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아주 불가능하다. 너희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수많은 살아있는 피조물이 있다. 동물 세계 전체가, 진화하는 행성들의 전체 동물 종류와는 완전히 다른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 생명체는, 가장 지성적이고 정교하게 실용적이며, 다양한 모든 종(種)은 놀랄 정도로 온유하고 감동적으로 친근하다. 그런 건축양식 세계들에는 육식(肉食)하는 피조물이 없으며; **에덴시아** 전체에는 살아있는 존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식물 생명체 역시 **유란시아**의 것과 매우 다른데, 다양한 물질 식물 및 모론시아 식물로 구성돼 있다. 물질적 성장은, 독특한 녹색 색조를 띄지만, 모론시아에서 식물 생명체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한 빛깔과 반사광을 갖는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이다. 그런 모론시아 식물은 순전한 에너지 성장체이며; 먹었을 때 남는 부분이 없다.

이 건축양식 세계들은, 모론시아 종류들은 물론, 10가지 부문의 물리적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경치 그리고 물질 및 모론시아 구조물을, 생물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한다. 천상의 기능공들은, 식물로 장식하고 생물로 꾸미는 이 광범한 일을 하면서 원주민 스포르나기아들을 지도한다. 너희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기(生氣) 없는 물감

the exquisite gardens of the Most Highs, and these gardens are among the most entrancing morontia creations of the local universe. This explains why the extraordinarily beautiful places on the inhabited worlds of Norlatiadek are so often called “the garden of Eden.”

43:6.3 (492.3) Centrally located in this magnificent garden is the worship shrine of the Most Highs. The Psalmist must have known something about these things, for he wrote: “Who shall ascend the hill of the Most Highs? Who shall stand in this holy place?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vanity nor sworn deceitfully.” At this shrine the Most Highs, on every tenth day of relaxation, lead all Edentia in the worshipful contemplation of God the Supreme.

43:6.4 (492.4) The architectural worlds enjoy ten forms of life of the material order. On Urantia there is plant and animal life, but on such a world as Edentia there are ten divisions of the material orders of life. Were you to view these ten divisions of Edentia life, you would quickly classify the first three as vegetable and the last three as animal, but you would be utterly unable to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intervening four groups of prolific and fascinating forms of life.

43:6.5 (492.5) Even the distinctively animal lif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volutionary worlds, so different that it is quite impossible to portray to mortal minds the unique character and affectionate nature of these nonspeaking creatures.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living creatures which your imagination could not possibly picture. The whole animal creation is of an entirely different order from the gross animal species of the evolutionary planets. But all this animal life is most intelligent and exquisitely serviceable, and all the various species are surprisingly gentle and touchingly companionable. There are no carnivorous creatures on such architectural worlds; there is nothing in all Edentia to make any living being afraid.

43:6.6 (492.6) The vegetable life is also very different from that of Urantia, consisting of both material and morontia varieties. The material growths have a characteristic green coloration, but the morontia equivalents of vegetative life have a violet or orchid tinge of varying hue and reflection. Such morontia vegetation is purely an energy growth; when eaten there is no residual portion.

43:6.7 (492.7) Being endowed with ten divisions of physical life, not to mention the morontia variations, these architectural worlds provide tremendous possibilities for the biologic beautification of the landscape and of the material and the morontia structures. The celestial artisans direct the native spornagia in this extensive work of botanic decoration and biologic embellishment. Whereas your artists must resort to inert paint and

과 생명 없는 대리석을 소재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천상의 기능공과 유니비타시아들은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상{理想}을 담기 위해서, 생명 있는 물질을 더 자주 활용한다.

네가 **유란시아**의 꽃, 화초, 나무 등을 좋아한다면, **에덴시아**에 있는 숭고한 동산의 아름다운 식물과 장관을 이룬 꽃들로 너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세계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필사 정신에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확실히 설명할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정말로, 필사자가 상승하는 모험을 겪는 이 세계들로부터 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광을, 사람의 눈은 본 적이 없다.

7. 유니비타시아

유니비타시아는, **에덴시아**와 그에 관련된 세계들, 즉 그들의 감독을 받는 성좌 본부를 감싸는 770개 세계 전체의 영구 시민{市民}이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이 자녀들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실존하는 수준으로 입안되지만, 모론시아 피조물은 아니다. **에덴시아**의 70개 주요 구체 각각에 있는 원주민은, 눈에 보이는 다른 형상을 갖고 있으며, 모론시아 필사자는 1번 세계로부터 70번 세계로 연속으로 옮겨가면서, 한 **에덴시아** 구체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居住地}를 변경할 때마다, 유니비타시아의 상승하는 등급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모론시아 형상을 맞춘다.

영적인 면에서 유니비타시아들은 똑같지만; 지성적으로는 필사자들이 그러하듯이 다양하며; 형상으로는 모론시아 실존 상태와 비슷하고, 다양한 70개 계층의 인격 역할을 하도록 창조됐다. 이 계층 각각의 유니비타시아의 지성 활동은 10가지 주요 변종을 나타내며, 이 다양한 지적{知的} 유형은, 각각 **에덴시아**의 각 주요 세계를 도는 10개의 위성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점진적인 직업 사회화, 즉 실용적 사고를 가르치는 특별 훈련 및 문화 학교들을 주관한다.

700개의 이 부속 세계는, 지방우주의 전체 활동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구체이며, 모든 부류의 지성 존재에게 개방돼 있다. 특별한 숨씨와 전문 지식을 훈련하는 이 학교들은,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 중에서 모론시아 학생들이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더라도, 상승하는 필사자만을 위해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사회 문화를 맡는 70개의 주요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너희가 영접 받을 때, 주변을 도는 10개의 위성 각각에 착륙할 수 있는 허가서가 너희에게 즉시 발급된다.

우대하는 다양한 거류지에서, 상승하는 모론

lifeless marble to portray their concepts,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 univitatia more frequently utilize living materials to represent their ideas and to capture their ideals.

43:6.8 (493.1) If you enjoy the flowers, shrubs, and trees of Urantia, then will you feast your eyes upon the botanical beauty and the floral grandeur of the supernal gardens of Edentia. But it is beyond my powers of description to undertake to convey to the mortal mind an adequate concept of these beauties of the heavenly worlds. Truly, eye has not seen such glories as await your arrival on these worlds of the mortal-ascension adventure.

7. THE UNIVITATIA

43:7.1 (493.2) Univitatia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Edentia and its associated worlds, all seven hundred seventy worlds surrounding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being under their supervision. These childre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are projected on a plane of existence i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but they are not morontia creatures. The natives of each of the seventy major spheres of Edentia possess different visible forms, and the morontia mortals have their morontia forms attuned to correspond with the ascending scale of the univitatia each time they change residence from one Edentia sphere to another as they pass successively from world number one to world number seventy.

43:7.2 (493.3) Spiritually, the univitatia are alike; intellectually, they vary as do mortals; in form, they much resemble the morontia state of existence, and they are created to function in seventy diverse orders of personality. Each of these orders of univitatia exhibits ten major variat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each of these varying intellectual types presides over the special training and cultural schools of progressive occupational or practical socialization on some one of the ten satellites which swing around each of the major Edentia worlds.

43:7.3 (493.4) These seven hundred minor worlds are technical spheres of practical education in the working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and are open to all classes of intelligent beings. These training schools of special skill and technical knowledge are not conducted exclusively for ascending mortals, although morontia students constitute by far the largest group of all those who attend these courses of training. When you are received on any one of the seventy major worlds of social culture, you are immediately given clearance for each of the ten surrounding satellites.

43:7.4 (493.5) In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시아 필사자가 회고 지휘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유니비타시아는 천상의 기능공으로 구성된 **네바돈** 단체와 연합된 가장 큰 집단을 대표한다. **오르본톤** 전체에서 **우버사의** 어벤돈터들을 제외한 **하보나** 바깥쪽의 어떤 존재도, 기능적 솜씨, 사회 적응력, 그리고 협조하는 민첩함에서 유니비타시아를 따라갈 수 없다.

성좌의 이 시민들은, 기능공 단체의 실제 요원은 아니지만, 모든 집단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고, 과도기 문화의 장엄한 예술적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서, 성좌 세계들을 최고의 구체로 만드는데 많이 기여한다. 그들은 성좌 본부 세계의 범위를 넘어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8. 에덴시아의 훈련 세계

에덴시아 및 그 주변을 도는 구체들의 물리적 자산은 거의 완전하며; **살빙톤** 구체들의 영적 위엄과 아주 같을 수는 없지만, **예루셈** 훈련 세계의 영광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 **에덴시아** 구체들은 모두 보편적인 공간 흐름으로 에너지를 직접 얻으며, 성좌 중심들이 이 구체들의 엄청난 물질 동력 체계와 모론시아 동력 체계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분배하는데, 이 중심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로 이뤄진 유능한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필사자가 상승하면서 **에덴시아**에서 지내는 시대와 관련된, 과도기 모론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70개의 훈련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은, 완결성취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가장 안정된 기간이며; 이것은 정말로 전형적인 모론시아 생애다. 한 주요 문화 세계에서 다른 주요 문화 세계로 옮길 때마다 다시 맞춰지지만, 너희는 동일한 모론시아 몸을 유지하며, 인격이 의식을 잃는 기간은 없다.

에덴시아 및 그에 관련된 구체들에서 머물면서 너는 주로, 집단 윤리, 즉 다양한 우주 및 연방 우주 계층의 지성적 인격체들과 유쾌하고 유익한 상호관계를 갖는 비결을 숙달하기에 몰두한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는 진화하는 필사자 인격의 통합을 완성하며; 체계 수도에서는 **예루셈** 시민권을 획득하고, 집단 활동 및 조화된 이행업무들을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 이제 성좌 훈련 세계들에서, 너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인격은 참된 교제를 성취하게 돼있다. 숭고한 이 문화적 습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우는 일로 이뤄진다:

1. 열 명의 다양한 동료 모론시아인과 행복하

ascending morontia mortals predominate among the reversion directors, but the univitalia represent the largest group associated with the Nebadon corps of celestial artisans. In all Orvonton no extra-Havona beings excepting the Uversa abandoners can equal the univitalia in artistic skill, social adaptability, and co-ordinating cleverness.

43:7.5 (493.6) These citizens of the constellation are not actually members of the artisan corps, but they freely work with all groups and contribute much to making the constellation worlds the chief spher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agnificent artistic possibilities of transition culture. They do not function beyond the confines of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8. THE EDENTIA TRAINING WORLDS

43:8.1 (493.7) The physical endowment of Edentia and its surrounding spheres is well-nigh perfect; they could hardly equal the spiritual grandeur of the spheres of Salvington, but they far surpass the glories of the training worlds of Jerusalem. All these Edentia spheres are energized directly by the universal space currents, and their enormous power systems, both material and morontial, are expertly supervised and distributed by the constellation centers, assisted by a competent corps of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Morontia Power Supervisors.

43:8.2 (494.1) The time spent on the seventy training worlds of transition morontia culture associated with the Edentia age of mortal ascension, is the most settled period in an ascending mortal's career up to the status of a finaliter; this is really the typical morontia life. While you are re-keyed each time you pass from one major cultural world to another, you retain the same morontia body, and there are no periods of personality unconsciousness.

43:8.3 (494.2) Your sojourn on Edentia and its associated spheres will be chiefly occupied with the mastery of group ethics, the secret of pleasant and profitabl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universe and superuniverse orders of intelligent personalities.

43:8.4 (494.3) On the mansion worlds you completed th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mortal personality; on the system capital you attained Jerusalem citizenship and achieved the willingness to submit the self to the disciplines of group activities and co-ordinated undertakings; but now on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you are to achieve the real socialization of your evolving morontia personality. This supernal cultural acquirement consists in learning how to:

43:8.5 (494.4) 1. Live happily and work effectively with

게 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한편, 그런 열 개의 집단이 100개의 조합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는 1,000개의 단체에서 연합되는 방법.

2. 지성적으로는 모론시아 존재와 비슷하더라도, 기타 모든 면에서는 매우 다른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기쁘게 머물고 진심으로 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너는 이 집단이 다른 열 가족과 협조하는 동안 이 열 명의 집단과 함께 활동해야 하는데, 이 가족들은 다시 1,000명의 유니비타시아 단체로 연합한다.

3. 동료 모론시아인들 그리고 주인(主人)인 이 유니비타시아 모두에게 동시에 적응하기를 성취하는 방법. 지성 피조물 가운데 약간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긴밀하게 일하는, 너 자신의 계층에 속한 존재들과 함께, 자진해서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역량을 획득하는 방법.

4. 바로 너와 비슷한 존재 및 비슷하지 않은 존재들과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양쪽 집단의 동역자들과 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들에게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방법.

5. 지적 수준과 직업 수준에서 만족할만한 교제를 인격이 달성하는 동안, 계속 성급함을 줄이고 계속 분노를 줄이고, 비슷한 존재 및 약간 다른 존재들과 친숙하게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역량을 더 완전하게 하는 방법. 회고 지휘자들은 그들의 집단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이 후자(後者)를 달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한다.

6. 다양한 이 교제 기법 전부를, **낙원**으로 상승하는 생애의 점진적 협조 촉진에 맞추는 방법; 외견상 무의미한 이 시공간 활동들에 감춰진 영원한 목표와 의미를 파악하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주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7. 그리고 나서, 다중(多重) 사회화의 이 과정들 전체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동시에, 집단의 영적 연합 및 모론시아 조정을 통해서, 모든 국면의 개인 재능을 증진시키기에 관계되는 영적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지성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두 피조물은, 서로 협력하는 기법으로 우주에서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겨우 두 배로 늘이지 않으며, 달성하고 완성할 가능성을 거의 네 배에 가깝게 만든다.

우리는, **에덴시아** 교제에 대해, 한 모론시아 필사자가, 지성적으로 다른 열 명으로 구성된 유니비타시아 가족 집단과 사귀고, 동시에 동료 모론시아인 열 명과 비슷하게 사귀는 것이라고 묘사해 왔다. 그러나 처음 일곱 주요 세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만이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둘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에서는 두 명의 필사자가 열 명의 각 원주민 집단과 함께 거주하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집단의 일곱 주요 구체에서는 열 명의 모론시아 존재

ten diverse fellow morontians, while ten such groups are associated in companies of one hundred and then federated in corps of one thousand.

43:8.6 (494.5) 2. Abide joyfully and co-operate heartily with ten univitatia, who, though similar intellectually to morontia beings, are very different in every other way. And then must you function with this group of ten as it co-ordinates with ten other families, which are in turn confederated into a corps of one thousand univitatia.

43:8.7 (494.6) 3. Achieve simultaneous adjustment to both fellow morontians and these host univitatia. Acquire the ability voluntarily and effectively to co-operate with your own order of beings in close working association with a somewhat dissimilar group of intelligent creatures.

43:8.8 (494.7) 4. While thus socially functioning with beings like and unlike yourself, achieve intellectual harmony with, and make vocational adjustment to, both groups of associates.

43:8.9 (494.8) 5. While attaining satisfactory soci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n intellectual and vocational levels, further perfect the ability to live in intimate contact with similar and slightly dissimilar beings with ever-lessening irritability and ever-diminishing resentment. The reversion directors contribute much to this latter attainment through their group-play activities.

43:8.10 (494.9) 6. Adjust all of these various socialization techniques to the furtherance of the progressive co-ordination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augment universe insight by enhancing the ability to grasp the eternal goal-meanings concealed within these seemingly insignificant time-space activities.

43:8.11 (494.10) 7. And then, climax all of these procedures of multisocialization with the concurrent enhancement of spiritual insight as it pertains to the augmentation of all phases of personal endowment through group spiritual association and morontia co-ordination. Intellectu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two moral creatures do not merely double their personal potentials of universe achievement by partnership technique; they more nearly quadruple their attainment and accomplishment possibilities.

43:8.12 (495.1) We have portrayed Edentia socialization as an association of a morontia mortal with a univitatia family group consisting of ten intellectually dissimilar individuals concomitant with a similar association with ten fellow morontians. But on the first seven major worlds only one ascending mortal lives with ten univitatia. On the second group of seven major worlds two mortals abide with each native group of ten, and so on up until, on the last group of seven major spheres, ten morontia beings are domiciled with

가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너희가 유니비타시아와 어떻게 더 잘 사귀느냐를 배움에 따라서, 너희는 진보하는 모론시아 동료와 갖는 관계에서 그런 증진된 윤리를 실천할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너희는 **에덴시아**의 진보 세계들에 머무는 것을 즐기게 되겠지만, 너희가 체계 본부에서 우주 직무와 처음 접촉하는 특성, 또는 우주 수도의 최종 세계들에서 이 실체들과 작별하면서 접촉했던 특성을 묘사하는 개인적 만족감의 짜릿함은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9. 에덴시아 시민권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70_번 세계에서 졸업한 후에, **에덴시아**에서 거주하게 된다. 상승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낙원의 집회**”에 참여하고, **충실 항존자**가 상승자의 광범한 생애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충실 항존자**는 그들이 만났던,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최상급 인격체**들 가운데 첫째다.

에덴시아 시민신분을 완결시키는, 성좌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이 전체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희열을 맛보는 기간이다. 체계의 여러 세계에 머무는 기간 내내, 너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모론시아 피조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영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물질적이었다. **살빙톤** 구체들에서, 너는 모론시아 존재로부터 참된 영 신분으로 진화할 것이며; 물질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에덴시아**에서, 상승자들은 자신의 이전 상태와 미래 신분 사이의 중간, 즉 진화하는 동물로부터 상승하는 영이 되는 통로에서 중간에 있다. **에덴시아** 및 거기에 속한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내내, 너는 “천사와 비슷한” 상태이며;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모론시아 상태를 줄곧 유지한다.

상승하는 필사자의 이 성좌 체류 기간은, 모론시아에서 진보하는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한결 같고 안정된 시기다. 이 체험은, 상승자가 영이_되기_전에 거치는 사회화 훈련이다. 그것은 **하보나**에서 완결성취자가_되기_전에 겪는 영적 체험과 비슷하며, **낙원**에서 거치는 유한절대_이전의 훈련과 비슷하다.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70개의 진보하는 유니비타시아 세계에서 주어지는 임무에 주로 전념한다. 또한 그들은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근무하는데, 집단, 인종, 국가, 및 행성의 복지와 관련된 성좌 계획표와 주로 연결돼 있다. **지고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개별 승진을 촉진하는 데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마음 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치한다.

그리고 너희가 **살빙톤** 경력을 위해서 **에덴시**

ten univitatia. As you learn how better to socialize with the univitatia, you will practice such improved ethics in your relations with your fellow morontia progressors.

43:8.13 (495.2) As ascending mortals you will enjoy your sojourn on the progress worlds of Edentia, but you will not experience that personal thrill of satisfaction which characterizes your initial contact with universe affairs on the system headquarters or your farewell touch with these realities on the final worlds of the universe capital.

9. CITIZENSHIP ON EDENTIA

43:9.1 (495.3) After graduation from world number seventy, ascending mortals take up residence on Edentia. Ascenders now, for the first time, attend the “assemblies of Paradise” and hear the story of their far-flung career as it is depicted by the Faithful of Days, the first of the Supreme Trinity-origin Personalities they have met.

43:9.2 (495.4) This entire sojourn on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culminating in Edentia citizenship, is a period of true and heavenly bliss for the morontia progressors. Throughout your sojourn on the system worlds you were evolving from a near-animal to a morontia creature; you were more material than spiritual. On the Salvington spheres you will be evolving from a morontia being to the status of a true spirit; you will be more spiritual than material. But on Edentia, ascenders are midway between their former and their future estates, midway in their passage from evolutionary animal to ascending spirit. During your whole stay on Edentia and its worlds you are “as the angels”; you are constantly progressing but all the while maintaining a general and a typical morontia status.

43:9.3 (495.5) This constellation sojourn of an ascending mortal is the most uniform and stabilized epoch in the entire career of morontia progression. This experience constitutes the prespirit socialization training of the ascenders. It is analogous to the prefinaliter spiritual experience of Havona and to the preabsonite training on Paradise.

43:9.4 (495.6) Ascending mortals on Edentia are chiefly occupied with the assignments on the seventy progressive univitatia worlds. They also serve in varied capacities on Edentia itself, mainly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ellation program concerned with group, racial, national, and planetary welfare. The Most Highs are not so much engaged in fostering individual advancement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rule in the kingdoms of men rather than in the hearts of individuals.

43:9.5 (495.7) And on that day when you are prepared

아를 떠날 준비가 된 그날에, 너희는 잠시 멈춰서, 낙원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가 훈련받던 전체 시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쾌했던 한 시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쪽을 행해 상승하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더욱 크게 식별할 수 있는 중대한 능력을 성취함에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이 늘어날 것이다.

[말라바티아 멜기세덱이 후원했음]

to leave Edentia for the Salvington career, you will pause and look back on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most refreshing of all your epochs of training this side of Paradise. But the glory of it all augments as you ascend inward and achieve increased capacity for enlarged appreciation of divine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43:9.6 (496.1) [Sponsored by Malavatia Melchizedek.]

제44편. 천상의 기능공

⇨ 043

유랜시아 책

045 ⇨

II 부. 지방우주

제44편
천상의 기능공

섹션

소개

1. 천상의 음악가
2. 하늘의 재생자
3. 신성한 건축가
4. 사고 기록원
5. 에너지 조종자
6. 설계자와 장식가
7. 조화 일꾼
8. 필사자의 열망과 모른시아 성취

소개

다양한 분과{分科} 본부 세계와 우주 본부 세계에서 우대받는 거류민{居留民} 가운데, 천상{天上}의 기능공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계층의 혼합된 인격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모른시아 영역 및 하급 영 영역의 으뜸 예술가요 기능공이다. 그들은 모른시아 장식과 영적 미화{美化}에 참여하는 영 및 준영{準靈}이다. 그런 기능공들은 광우주에 두루--곧 빛과 생명에 정착한 모든 구체뿐 아니라, 연방우주, 지방우주, 성좌, 및 체계의 본부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그들의 주요 활동 영역은 성좌에 있으며, 특히 각 본부 구체를 둘러싼 770개의 세계에 있다.

물질 정신은, 그들의 업무를 거의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모른시아 세계와 영{靈} 세계들에 자체의 고귀한 기술과 숭고한 문화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

PAPER 44

THE CELESTIAL ARTISAN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elestial Musicians
2. The Heavenly Reproducers
3. The Divine Builders
4. The Thought Recorders
5. The Energy Manipulators
6. The Designers and Embellishers
7. The Harmony Workers
8. Mortal Aspirations and Morontia Achievements

INTRODUCTION

44:0.1 (497.1) AMONG the courtesy colonies of the various divisional and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may be found the unique order of composite personalities denominated the celestial artisans. These beings are the master artists and artisans of the morontia and lower spirit realms. They are the spirits and semispirits who are engaged in morontia embellishment and in spiritual beautification. Such artisan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as well as on all spheres settled in light and life; but their chief realm of activity is in the constellations and especially on the seven hundred seventy worlds surrounding each headquarters sphere.

44:0.2 (497.2) Though their work may be almost incomprehensible to the material mi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are not without their high arts and supernal cultures.

천상의 기능공들은, 그 자체로 창조되지 않으며; 중앙우주 출신의 어떤 선생 인격체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및 기타 수많은 천상의 집단으로부터 뽑은 자원하는 제자들로 구성된, 선택되고 모집된 존재들의 단체다. 이 기술자들로 구성된 원래의 훈육 단체를, **무한한 영이 일곱 으뜸 영**과 협동해서 언젠가 배정했으며, 일곱 기능공 분야 각각에 1,000명씩, 7,000명의 **하보나** 교관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 핵심과 함께 시작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영 직무와 모론시아 직무에서 숨쳐 있는 일꾼들의 이 눈부신 단체가 발전돼 왔다.

어떤 모론시아 인격체나 영 실재든지;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신성한 아들신분의 지위보다 밑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천상의 기능공 단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진화하는 구체에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론시아 세계에 도착한 후에, 기능공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분히 재능을 갖고 있으면, 비교적 길거나 짧은 기간의 그런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1,000년, 즉 연방우주 시간으로 1,000년보다 짧게 천상의 기능공에 가입할 수 없다.

천상의 기능공 전체가 연방우주 본부에 등록돼 있지만, 그들은 지방우주 수도에서 모론시아 감독관들의 지휘를 받는다. 각 지방우주 본부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론시아 감독관들의 중앙 단체가 그들을 다음과 같은 주요 일곱 활동 분야에 임명한다:

1. **천상의 음악가.**
2. **하늘의 재생자.**
3. **신성한 건축가.**
4. **사고{思考} 기록원.**
5. **에너지 조종자.**
6. **설계자와 장식가.**
7. **조화{調和} 일꾼.**

이 일곱 집단의 원래 선생들은 모두 **하보나**의 완전한 세계들로부터 왔으며, **하보나**는 모든 국면과 형태의 영적 예술성을 위한 원형{原型}, 즉 원형 학문을 포함하고 있다. **하보나**의 이 예술을 우주의 세계들로 옮기려는 시도는 엄청난 과제{課題}지만, 천상의 기능공들은 대대로, 기법과 이행에서 개선을 이룩해 왔다.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다른 단계처럼, 어느 계통에서든지 노력해서 최고의 진보를 이룩한 자들은, 자신의 탁월한 지식과 숨씨를 자신보다 재능이 적은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도록 규정돼 있다.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서, 이식{移植}된 이 **하보나** 예술을 처음으로 잠깐 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너희의 감상은, 너

44:0.3 (497.3) The celestial artisans are not created as such; they are a selected and recruited corps of beings composed of certain teacher personalities native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heir volunteer pupils drawn from the ascending mortals and numerous other celestial groups. The original teaching corps of these artisans was sometime assigned by the Infinite Spirit in collaboration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onsisted of seven thousand Havona instructors, one thousand to each of the seven divisions of artisans. With such a nucleus to start with, there has developed through the ages this brilliant body of skillful workers in spirit and morontia affairs.

44:0.4 (497.4) Any morontia personality or spirit entity is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celestial artisans; that is, any being below the rank of inherent divine sonship. Ascending sons of God from the evolutionary spheres may, after their arrival on the morontia worlds, apply for admission to the artisan corps and, if sufficiently gifted, may choose such a career for a longer or shorter period. But no one may enlist with the celestial artisans for less than one millennium, one thousand years of superuniverse time.

44:0.5 (497.5) All celestial artisans are registere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but are directed by morontia supervisors on the local universe capitals. They are commissioned in the following seven major divisions of activity by the central corps of morontia supervisors functioning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ach local universe:

- 44:0.6 (497.6) 1. Celestial Musicians.
- 44:0.7 (497.7) 2. Heavenly Reproducers.
- 44:0.8 (497.8) 3. Divine Builders.
- 44:0.9 (497.9) 4. Thought Recorders.
- 44:0.10 (498.1) 5. Energy Manipulators.
- 44:0.11 (498.2) 6. Designers and Embellishers.
- 44:0.12 (498.3) 7. Harmony Workers.

44:0.13 (498.4) The original teachers of these seven groups all hailed from the perfect worlds of Havona, and Havona contains the patterns, the pattern studies, for all phases and forms of spirit artistry. While it is a gigantic task to undertake to transfer these arts of Havona to the worlds of space, the celestial artisans have improved in technique and execution from age to age. As in all other phases of the ascending career those who are most advanced in any line of endeavor are required constantly to impart their superior knowledge and skill to their less favored fellows.

44:0.14 (498.5) You will first begin to glimpse these transplanted arts of Havona on the mansion worlds, and their beauty and your appreciation of

희가 **살빙톤**의 영 회관에 서서, 영 영역에 속한 숭고한 예술가들의 영감 넘치는 거작{巨作}들을 바라보기 전까지, 강화되고 밝아질 것이다.

모론시아 및 영 세계들의 이 모든 활동은 실현한다. 영 존재에게는 영 세계가 현실이다. 우리에게 물질 세계가 더 비현실이다. 상류 형태의 영들은, 평범한 물질을 통과해서 지나간다. 높은 영들은, 특정한 기본 에너지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물질 존재에게는 영 세계는 다소 비현실적이며; 영 존재에게는 물질 세계는 거의 완전하게 비현실인데, 영 실체 내용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 시력만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이야기가 번역되어 기록되고 있는 그 건물을 감지하지 못한다. 우연히 내 옆에 서게 된, **우버사**로부터 온 어떤 **신성한 조연자**는, 순전히 물질적인 이 창조물을 훨씬 적게 감지한다.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변형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신에게 제시하는 영 상대물을 봄으로써, 이런 물질 구조물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별한다. 영 존재인 내게는, 물질적인 이 건물이 전혀 실재하지 않지만, 물질 필사자에게는 당연히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쓸모 있다.

영 세계와 물질 세계, 양쪽 피조물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하보나 하인** 중에서 소위 넷째 피조물과, 화해자 중에서 넷째 피조물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육신을 입은 생애에서 구출된 뒤에 상승하는 필사자처럼, 시간과 공간의 천사들은 영과 물질 존재 양쪽 다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다. 상승자들은, 높은 영 수준을 달성한 후에, 물질 실체와 모론시아 실체 그리고 영 실체를 감지할 수 있다.

한때 필사 존재였고 **조울사**와 융합된 상승자인, **우버사**에서 온 **강력한 사자** 또한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며, 그는 너희를 현재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동시에,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및 기타 천상의 존재들이 현존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긴 상승 과정에서, 너희가 전에 실존했을 때 동역자였던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생애의 사다리에서 안쪽으로 상승할 때, 예전에 낮은 수준에서 체험하는 동안 만났던 동료 존재들을 알아보고 사귀는 역량을 항상 유지할 것이다. 새로운 전환 또는 부활이 있을 때마다, 그 전 세계들에서 만났던 친구와 동료를 알아보는 역량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영 존재 집단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시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주하는 **사교 조울사**의 조치로, 상승하는 필사자의 체험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 너의 생애에서 겪은 체험 전체를 복사하는 그들의 기억력을 통해서, 너는 한때 정말로 네 것이었던 어떤 속성이든지 결코 잃지 않도록 보장받으

their beauty will heighten and brighten until you stand in the spirit halls of Salvington and behold the inspiring masterpieces of the supernal artists of the spirit realms.

44:0.15 (498.6) All these activitie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are real. To spirit beings the spirit world is a reality. To us the material world is the more unreal. The higher forms of spirits freely pass through ordinary matter. High spirits are reactive to nothing material excepting certain of the basic energies. To material beings the spirit world is more or less unreal; to spirit beings the material world is almost entirely unreal, being merely a shadow of the substance of spirit realities.

44:0.16 (498.7) I cannot, with exclusive spirit vision, perceive the building in which this narrative is being translated and recorded. A Divine Counselor from Uversa who chances to stand by my side perceives still less of these purely material creations. We discern how these material structures appear to you by viewing a spirit counterpart presented to our minds by one of our attending energy transformers. This material building is not exactly real to me, a spirit being, but it is, of course, very real and very serviceable to material mortals.

44:0.17 (498.8) There are certain types of beings who are capable of discerning the reality of the creatures of both the spirit and the material worlds. Belonging to this class are the so-called fourth creatures of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fourth creatures of the conciliators. The angels of time and space are endowed with the ability to discern both spirit and material beings as also are the ascending mortals subsequent to deliverance from the life in the flesh. After attainment of the higher spirit levels the ascenders are able to recognize material, morontia, and spirit realities.

44:0.18 (498.9) There is also here with me a Mighty Messenger from Uversa, an ascendant Adjuster-fused, onetime mortal being, and he perceives you as you are, and at the same time he visualizes the Solitary Messenger, the supernaphim, and other celestial beings present. Never in your long ascendancy will you lose the power to recognize your associates of former existences. Always, as you ascend inward in the scale of life, will you retain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fraternize with the fellow beings of your previous and lower levels of experience. Each new translation or resurrection will add one more group of spirit beings to your vision range without in the least depriving you of the ability to recognize your friends and fellows of former estates.

44:0.19 (498.10) All this is made possible in the experience of ascending mortals by the action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Through their retention of the duplicates of your entire life's experiences, you are assured of never losing any

며;이 **조율사**는 너의 한 부분으로서, 실제로는 너 자신으로서 너와 함께 겪는다.

그러나 나는, 천상의 기능공들이 하는 일의 본성을 물질 정신에게 전할 수 없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다. 이 모론시아 진행사항과 영에 가까운 현상의 실체를 필사 정신에게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나는 계속 사고(思考)를 오해하고 언어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너희의 납득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너희의 언어는 약간영적인 이 활동의 의미, 가치, 및 관계를 전달하기에 부적합하다. 나는 이 실체들에 관해서 인간 정신을 일깨우려고 이렇게 계속 애쓰고 있지만, 그런 이행업무에서 나 같은 존재가 크게 성공하기는 심각한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나는, 필사자의 물질적 활동과 천상의 기능공들의 여러 기능 사이의 유사성을, 있는 그대로 그려보려고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유란시아** 인종들이 예술을 비롯해 다른 문화적 성취들에서 더 진보를 이룩했다면, 물질로 이뤄진 사물로부터 모론시아 사물 쪽으로 인간 정신을 넓혀주려는 노력에서, 나는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모론시아 및 영 세계의 이 진행사항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내가 이루고자 희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1. 천상의 음악가

필사자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으므로, 너희는 모론시아의 곡조를 거의 알아챌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모론시아 화음과 영 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청력(聽力)으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물질적 음역(音域)도 있다. 영 곡조는 물질적 음파가 아니라, 천상의 인격체들의 영이 청취하는 영 진동이다. 구체들의 선율과 어우러지는 웅대한 연주뿐 아니라, 방대한 범위와 표현하는 열정이 있는데,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전적으로 벗어난다. 나는 천상의 회로의 영 에너지 위에서 그 범주의 선율이 흘러가는 동안, 최고의 황홀경에 도취된 수백만의 존재를 봤다. 기묘한 이 선율은 우주 구석구석까지 방송될 수 있다.

천상의 음악가는, 다음과 같은 영 세력들을 조종함으로써, 천상의 화음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1. **영적인 소리** --영 흐름의 끊어짐.

2. **영적인 빛** --모론시아와 영적 범주의 빛을 통제하고 강화함.

3. **에너지 충돌** --모론시아 에너지와 영 에너

true attribute you once had; and these Adjusters are going through with you, as a part of you, in reality, as *you*.

44:0.20 (499.1) But I almost despair of being able to convey to the material mind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celestial artisans. I am under the necessity of constantly perverting thought and distorting language in an effort to unfold to the mortal mind the reality of these morontia transactions and near-spirit phenomena. Your comprehension is incapable of grasping, and your language is inadequate for conveying, the meaning, value, and relationship of these semispirit activities. And I proceed with this effort to enlighten the human mind concerning these realities with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utter impossibility of my being very successful in such an undertaking.

44:0.21 (499.2) I can do no more than attempt to sketch a crude parallelism between mortal material activities and the manifold functions of the celestial artisans. If the Urantia races were more advanced in art and other cultural accomplishments, then could I go that much farther in an effort to project the human mind from the things of matter to those of morontia. About all I can hope to accomplish is to make emphatic the fact of the reality of these transactions of the morontia and the spirit worlds.

1. THE CELESTIAL MUSICIANS

44:1.1 (499.3) With the limited range of mortal hearing, you can hardly conceive of morontia melodies. There is even a material range of beautiful sound unrecognized by the human sense of hearing, not to mention the inconceivable scope of morontia and spirit harmony. Spirit melodies are not material sound waves but spirit pulsations received by the spirits of celestial personalities. There is a vastness of range and a soul of expression, as well as a grandeur of execution, associated with the melody of the spheres, that are wholly beyond human comprehension. I have seen millions of enraptured beings held in sublime ecstasy while the melody of the realm rolled in upon the spirit energy of the celestial circuits. These marvelous melodies can be broadcast to the uttermost parts of a universe.

44:1.2 (499.4) The celestial musicians are occupied with the production of celestial harmony by the manipulation of the following spirit forces:

44:1.3 (499.5) 1. *Spiritual sound* — spirit current interruptions.

44:1.4 (499.6) 2. *Spiritual light* — the control and intensification of the light of the morontia and spiritual realms.

44:1.5 (499.7) 3. *Energy impingements* — melody

지를 기술적으로 다룸으로써 산출되는 곡조.

4. **색 조화**--모론시아 색조{色調}의 선율; 이것은 천상의 음악가들의 가장 높은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꼽힌다.

5. **연합된 영들의 조화**--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다른 계층의 모론시아 존재 및 영 존재로 구성된 참된 배열과 연합.

6. **사고{思考}의 곡조**--영적 사고를 사색하는 것은, **하보나**의 곡조로 터져 나올 만큼 완전하게 될 수 있다.

7. **공간의 음악**--알맞게 조율함으로써, 다른 범위의 곡조를 우주 방송 회로에서 청취할 수 있다.

소리, 색, 및 에너지를 조종하는 10만 가지가 넘는 다른 형식이 있는데, 인간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기법이다. 너희가 춤출 때 연주하는 합주곡{合奏曲}은, 존재를 배치하고 인격체를 배열함으로 이뤄지는 천상의 조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물질 피조물이 미숙하고 괴상하게 시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다른 5가지 모론시아 곡조 형태는, 물질적 육체의 감지 장치로 포착되지 않는다.

화음, 즉 일곱 음정의 곡조를 조합하는 음악은, 영이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신호법이다.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음악은, 체계 본부인 **예루셈** 학교에서 가장 고상하게 표현되는데, 거기서 악간물질 존재들이 음의 조화를 배운다. 필사자는 다른 형태의 모론시아 곡조 및 천상의 화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는 음악을 육신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감상하며; 너희 인간 음악가는, 옛 선조의 야만적 단조로움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소리 감상으로, 음악적 감각을 무척 향상시켜 왔다. 대부분의 **유란시아** 필사자는, 음악에 대해 거의 대부분 물질 근육으로 감응하고, 정신과 영으로는 매우 적게 감응하지만; 3만 5천 년 이상 지나오는 동안, 음악 감상은 꾸준히 개선돼 왔다.

선율이 아름다운 당김음은, 원시인의 단조로운 음악으로부터, 후대 음악가들이 풍성하게 표현한 화음과 의미 있는 곡조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 유형의 이 박자는, 화음을 감상하는 상류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악을_좋아하는 감각 반응을 자극하며, 따라서 미성숙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더 호감을 갖는다.

유란시아에서 최고의 음악은, 너희 음악가를 연상하게 하는 천상{天上}의 음악가들이 듣는 장

produced by the skillful management of the morontia and spirit energies.

44:1.6 (499.8) 4. *Color symphonies* — melody of morontia color tones; this ranks among the highest accomplishments of the celestial musicians.

44:1.7 (499.9) 5. *Harmony of associated spirits* — the very arrangement and association of different orders of morontia and spirit beings produce majestic melodies.

44:1.8 (499.10) 6. *Melody of thought* — the thinking of spiritual thoughts can be so perfected as to burst forth in the melodies of Havona.

44:1.9 (499.11) 7. *The music of space* — by proper attunement the melodies of other spheres can be picked up on the universe broadcast circuits.

44:1.10 (500.1) There are over one hundred thousand different modes of sound, color, and energy manipulation, techniques analogous to the human employment of musical instruments. Your ensembles of dancing undoubtedly represent a crude and grotesque attempt of material creatures to approach the celestial harmony of being placement and personality arrangement. The other five forms of morontia melody are unrecognized by the sensory mechanism of material bodies.

44:1.11 (500.2) Harmony, the music of the seven levels of melodious association, is the one universal code of spirit communication. Music, such as Urantia mortals understand, attains its highest expression in the schools of Jerusalem, the system headquarters, where semimaterial beings are taught the harmonies of sound. Mortals do not react to the other forms of morontia melody and celestial harmony.

44:1.12 (500.3) Appreciation of music on Urantia is both physical and spiritual; and your human musicians have done much to elevate musical taste from the barbarous monotony of your early ancestors to the higher levels of sound appreciation. The majority of Urantia mortals react to music so largely with the material muscles and so slightly with the mind and spirit; but there has been a steady improvement in musical appreciation for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years.

44:1.13 (500.4) Tuneful syncopation represents a transition from the musical monotony of primitive man to the expressionful harmony and meaningful melodies of your later-day musicians. These earlier types of rhythm stimulate the reaction of the music-loving sense without entailing the exertion of the higher intellectual powers of harmony appreciation and thus more generally appeal to immature or spiritually indolent individuals.

44:1.14 (500.5) The best music of Urantia is just a fleeting echo of the magnificent strains heard by

엄한 선율이 눈 깜짝 할 동안 공명한 것에 불과한 데, 그들은 모론시아 세력들이 음 화성학의 음악적 가락으로 기록한 이런 화음의 작은 단편들을 남겨놨을 뿐이다. 영_모론시아 음악은 일곱 형태의 표현과 재생 전체를 종종 사용하는데, 그래서 높은 구체들의 이런 가락을 음악의 단순한 음표로 적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정신은 엄청나게 장애를 겪는다. 그런 노력은 겨우 한 개의 악기로 거창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가락을 어느 정도 조립해 왔지만, 음악적으로 볼 때, **사타니아**에 있는 너희의 여러 이웃 행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아만 있었다라도, 너희는 음악을 정말로 소유했겠지만; 그들의 본성을 많이 차지했던 화음이라는 은사는, 음악적 소양이 없는 핏줄로 인해서 너무 희석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필사자로서 1,000번 산다면 겨우 한번 화성을 깊이 음미할 정도까지 됐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라; 언젠가 참된 음악가가 **유란시아**에 출현할 것이며, 그가 만든 가락의 장엄한 선율에 모든 사람이 매혹될 것이다. 그런 한 인간이 국가 전체, 심지어 개화된 전체 세상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 “가락이 온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음악은, 사람, 천사, 및 영들의 보편적 언어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화음은 **하보나**의 언어다.

2. 하늘의 재생자

필사적 사람은, 하늘의 재생자(再生者)들의 기능에 대해서 빈약하고 왜곡된 것보다 더 나은 개념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나는 너희의 물질 언어의 조잡하고 제한된 상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설명하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다. 영_모론시아 세계에는 최상의 가치를 갖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생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좀처럼 “사람의 정신이 겪어본 적” 없는 범주의 활동에 속한 체험이며, 육신을 입은 생애에서 생존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대기시키는 실체들이다.

하늘의 재생자에는 일곱 집단이 있으며, 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설명하려 한다:

1. **가수** --과거의 특정한 화음을 반복하고 현재의 가락을 해석하는 화성학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론시아 수준에서 실행된다.

2. **색칠하는 자** --너희가 사생가 또는 화가라고 부를 지도 모를,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예술가, 즉 장래의 모론시아 즐거움을 위해서, 지나가는 장면과 일시적 사건들을 보존하는 예술가.

the celestial associates of your musicians, who left but snatches of these harmonies of morontia forces on record as the musical melodies of sound harmonics. Spirit-morontia music not infrequently employs all seven modes of expression and reproduction, so that the human mind is tremendously handicapped in any attempt to reduce these melodies of the higher spheres to mere notes of musical sound. Such an effort would be something like endeavoring to reproduce the strains of a great orchestra by means of a single musical instrument.

44:1.15 (500.6) While you have assembled some beautiful melodies on Urantia, you have not progressed musically nearly so far as many of your neighboring planets in Satania. If Adam and Eve had only survived, then would you have had music in reality; but the gift of harmony, so large in their natures, has been so diluted by strains of unmusical tendencies that only once in a thousand mortal lives is there any great appreciation of harmonics. But be not discouraged; some day a real musician may appear on Urantia, and whole peoples will be enthralled by the magnificent strains of his melodies. One such human being could forever change the course of a whole nation, even the entire civilized world. It is literally true, “melody has power a whole world to transform.” Forever, music will remain the universal language of men, angels, and spirits. Harmony is the speech of Havona.

2. THE HEAVENLY REPRODUCERS

44:2.1 (500.7) Mortal man can hardly hope for more than a meager and distorted concept of the functions of the heavenly reproducers, which I must attempt to illustrate through the gross and limited symbolism of your material language. The spirit-morontia world has a thousand and one things of supreme value, things worthy of reproduction but unknown on Urantia, experiences that belong in the category of the activities which have hardly “entered into the mind of man,” those realities which God has in waiting for those who survive the life in the flesh.

44:2.2 (501.1) There are seven groups of the heavenly reproducers, and I will attempt to illustrate their work by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44:2.3 (501.2) 1. *The singers* — harmonists who reiterate the specific harmonies of the past and interpret the melodies of the present. But all of this is effected on the morontia level.

44:2.4 (501.3) 2. *The color workers* — those artists of light and shade you might call sketchers and painters, artists who preserve passing scenes and transient episodes for future morontia enjoyment.

3. 빛을 영상화 시키는 자 --매우 유치하지만, 동영상(動映像)을 예로 들 수 있는, 참된 준영{準靈}_현상을 보존하는 작품을 만드는 자들.

4. 역사물 연출가 --우주 기록과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극적으로 재생시키는 자들.

5. 예언적 예술가 --역사의 의미를 미래 속으로 투영시켜보는 자들.

6. 생애_이야기꾼 --인생 체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존시키는 자들. 현재의 개인 체험을 미래에 달성할 가치로 예측함.

7. 경영 공연자 --통치 원리와 경영 기법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자들, 즉 주권을 표현하는 천상의 극작가들.

하늘의 재생자들은, 기억의 재현을 어떤 형태의 정신 휴식 및 인격체의 기분전환과 통합하려고, 회고 지휘자들과 매우 종종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모론시아 비밀회의와 영 집회 앞에서, 이 재생자들은 그런 모임의 목적을 대표하는, 엄청난 극적인 작품 속에 때때로 참여한다. 나는 최근에, 100만 명 이상의 배우가 1,000개의 장면을 연속으로 재현하는 엄청난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지적인 높은 선생과 과도기 사역자들은, 자신의 모론시아 교육 활동 중에 다양한 집단의 재생자들을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전체가 순간적 예증{例證}에 활용되지는 않으며;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영구적인 본성을 가졌고, 모든 미래 시대에 전해주는 유물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기능공들은 재주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기능을 발휘할 때, 한 시대를 다시 공연할 수 있고, 스랍 사역자들과 협동하여, 시간세계의 필사 선지자들에게 영 세계의 영원한 가치를 실제로 묘사할 수 있다.

3. 신성한 건축가

“하나님이 건설하고 조성하신” 도시들이 있다. 우리는 너희 필사자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 그리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영 사본{寫本} 속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집, 영 위문품, 그리고 모론시아 필수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만족 대신, 우리의 실존을 부요하게 하고 확대시키는 일을 하는, 수천 가지 영적 실체를 소유하고 있다. 신성한 건축가들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주택 설계자 및 건축가 --각 개인 및 작업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지를 건설하고 개조하는

44:2.5 (501.4) 3. *The light picturizers* — the makers of the real semispirit-phenomena preservations of which motion pictures would be a very crude illustration.

44:2.6 (501.5) 4. *The historic pageanteers* — those who dramatically reproduce the crucial events of universe records and history.

44:2.7 (501.6) 5. *The prophetic artists* — those who project the meanings of history into the future.

44:2.8 (501.7) 6. *The life-story tellers* — those who perpetuat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ife experience. The projection of present personal experiences into future attainment values.

44:2.9 (501.8) 7. *The administrative enactors* — those who depict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al philosophy and administrative technique, the celestial dramatists of sovereignty.

44:2.10 (501.9) Very often and effectively the heavenly reproducers collaborate with the reversion directors in combining memory recapitulation with certain forms of mind rest and personality diversion. Before the morontia conclaves and spirit assemblies these reproducers sometimes associate themselves in tremendous dramatic spectacles representative of the purpose of such gatherings. I recently witnessed such a stupendous presentation in which more than one million actors produced a succession of one thousand scenes.

44:2.11 (501.10) The higher intellectual teachers and the transition ministers freely and effectively utilize these various groups of reproducers in their morontia educational activities. But not all of their efforts are devoted to transient illustration; much, very much, of their work is of a permanent nature and will forever remain as a legacy to all future time. So versatile are these artisans that, when they function en masse, they are able to re-enact an age,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seraphic ministers they can actually portray the eternal values of the spirit world to the mortal seers of time.

3. THE DIVINE BUILDERS

44:3.1 (501.11) There are citie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In spirit counterpart we have all that you mortals are familiar with and inexpressibly more. We have homes, spirit comforts, and morontia necessities. For every material satisfaction which humans are capable of enjoying, we have thousands of spiritual realities that serve to enrich and enlarge our existence. The divine builders function in seven groups:

44:3.2 (502.1) 1. *The home designers and builders* — those who construct and remodel the abodes

자들. 이 모론시아 및 영 거주지들은 실재한다. 그것들은 너희의 근시안적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아름답다. 어느 정도까지, 모든 영 존재는 그들의 모론시아 거주지 또는 영 거주지들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그 건축가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거기서 살게 될 모론시아 피조물 또는 영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서, 이 집을 조정하고 꾸민다. 이 모든 건축물에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다양함과 넉넉한 기회가 있다.

2. **직업관련 건축가** --영 영역 및 모론시아 영역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일꾼들의 체류지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이 건축가들은 **유란시아**에서 작업장 및 기타 산업 공장을 건축하는 그들과 비교될 수 있다. 변환기 세계들에는, 서로 봉사하고 특화된 노동으로 분업하는 필연적 경제체도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온갖 일을 하지는 않으며; 모론시아 존재 및 진화하는 영 중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 직업 건축가들은 개선된 작업장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의 직업 향상에도 또한 기여한다.

3. **놀이관련 건축가**. 수많은 건축물이 휴식 기간에 활용되는데, 이 휴식은 필사자들이 오락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놀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회고 지휘자들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들은 모론시아 세계의 익살꾼이며, 그 과도기 구체들에서는, 상승하는 존재들이지만 진화 행성에서 최근에 옮겨진 자들의 훈련이 진행된다. 높은 영들조차,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기간에 특별한 형태로 추억에 잠기는 유머에 이끌린다.

4. **경배관련 건축가** --영 성전과 모론시아 성전의 숙련된 설계사들. 상승하는 필사자가 머무는 모든 세계에는 경배하는 성전이 있으며, 이 성전들은 모론시아 영역 및 영 구체들에서 가장 절묘한 창작품이다.

5. **교육관련 건축가** --모론시아 훈련과 고등 영 학습 본부를 짓는 자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보편적인 문화 지식뿐 아니라, 한 개인의 현재 및 미래에 할 일에 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있으며, 이런 정보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모론시아 세계와 영 세계에서 더욱 영리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만들도록 고안돼 있다.

6. **모론시아 계획가** --모든 범주의 모든 인격체가 한때 어느 한 구체에서 나타날 때, 그들이 조화롭게 교제하도록 건설하는 자들. 이 계획가들은, 진보하는 모론시아 생애가 더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과 협력한다.

assigned to individuals and working groups. These morontia and spirit domiciles are real. They would be invisible to your short-range vision, but they are very real and beautiful to us. To a certain extent, all spirit beings may share with the builders certain details of the planning and creation of their morontia or spirit abodes. These homes are fitted up and embel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morontia or of the spirit creatures who are to inhabit them. There is abundant variety and ample opportunity for individual expression in all these constructions.

44:3.3 (502.2) 2. *The vocation builders* — those who function in designing and assembling the abodes of the regular and routine workers of the spirit and morontia realms. These builders are comparable to those who construct the Urantia workshops and other industrial plants. The transition worlds have a necessary economy of mutual ministry and specialized division of labor. We do not all do everything; there is diversity of function among morontia beings and evolving spirits, and these vocation builders not only build better workshops but also contribute to the vocational enhancement of the worker.

44:3.4 (502.3) 3. *The play builders*. Enormous edifices are utilized during the seasons of rest, what mortals would call recreation and, in a certain sense, play. Provision is made for a suitable setting for the reversion directors, the humorists of the morontia worlds, those transition spheres whereon takes place the training of ascendant beings but recently removed from the evolutionary planets. Even the higher spirits engage in a certain form of reminiscent humor during their periods of spiritual recharging.

44:3.5 (502.4) 4. *The worship builders* — the experienced architects of the spirit and the morontia temples. All the worlds of mortal ascent have temples of worship, and they are the most exquisite creations of the morontia realms and the spirit spheres.

44:3.6 (502.5) 5. *The education builders* — those who build the headquarters of morontia training and advanced spirit learning. Always is the way open to acquire more knowledge, to gain additional information respecting one's present and future work as well as universal cultural knowledge, information designed to make ascending mortals more intelligent and effective citizen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44:3.7 (502.6) 6. *Morontia planners* — those who build for the co-ordinate association of all the personalities of all realms as they are at any one time present on any one sphere. These planners collaborate with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to enrich the co-ordination of the progressive morontia life.

7. 공공{公衆} 건축가--경배 드리는 곳이 아닌 지정된 집회 장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기능공들. 공공 집회가 있는 장소들은 거대하고 웅장하다.

이런 구조물뿐 아니라 그 장식물 역시, 물질 필사자가 감각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적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실제적이다. 너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거기에 간다면 이 회당들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이 모든 초물질 창작품은 실제로 거기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식별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즐긴다.

4. 사고 기록원

이 기능공들은 여러 범주의 뛰어난 사고{思考}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일을 하게 돼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사고 보존가. 이들은 여러 범주의 높은 사고를 보존하는 일에 전념한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보석 같은 지적{知的} 활동을 정말로 소중히 간직한다. 나는 **유란시아**에 처음 오기 전에, 이 행성에 있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관념작용에 대한 기록을 봤고 방송을 들었다. 사고 기록원들은 그런 고귀한 관념을 **우버사** 언어로 보존한다.

각 연방우주는, 자체 언어, 즉 거기 있는 인격체들이 말하고 그 구역들 전역에서 통용되는 방언을 갖고 있다. 우리 연방우주에서는 이것이 **우버사**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각 지방우주 역시 자체 언어를 갖고 있다. **네바돈**에 있는 상류 계층 전체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데, **네바돈** 언어와 **우버사** 방언 둘 다 사용한다. 서로 다른 두 우주에서 온 두 개인이 만나게 되면, **우버사** 방언으로 대화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연방우주에서 왔다면, 그들은 통역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언어가 거의 필요 없으며; 거기서는 완전하고 거의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며; 오직 **하나님**들만이 충분하게 납득되지 않을 뿐이다. **낙원**에서 우연한 만남이, 필사자의 언어로 약 1,000년에 걸쳐서 대화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나타낸다고 우리는 배웠다. 심지어 **살빙톤**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안다”.

모론시아 구체와 영 구체들에서 사고{思考}를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필사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고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압축시키는 속도를, 노련한 기록원들이 크게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개 이상의 단어, 즉 사고 상징들을 **유란시아** 시간으로 1분 만에 기록할 수 있다. 이 우주 언어는 진화하는 세계의 말보다 훨씬 완벽해 있다. 기본 알파벳이 겨우 70개 상징으로 돼있지만, **우버사**의 개념 상징은 10억 개 이상의 글자를 포함한다. **네바돈** 언어는 그다지

44:3.8 (502.7) 7. The public builders — the artisans who plan and construct the designated places of assembly other than those of worship. Great and magnificent are the places of common assembly.

44:3.9 (502.8) While neither these structures nor their embellishment would be exactly real to the sensory comprehension of material mortals, they are very real to us. You would be unable to see these temples could you be there in the flesh; nevertheless, all of these supermaterial creations are actually there, and we clearly discern them and just as fully enjoy them.

4. THE THOUGHT RECORDERS

44:4.1 (503.1) These artisans are devoted to the preserv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uperior thought of the realms, and they function in seven groups:

44:4.2 (503.2) 1. Thought preservers. These are the artisan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higher thought of the realms. On the morontia worlds they truly treasure the gems of mentation. Before first coming to Urantia, I saw records and heard broadcasts of the ideation of some of the great minds of this planet. Thought recorders preserve such noble ideas in the tongue of Uversa.

44:4.3 (503.3) Each superuniverse has its own language, a tongue spoken by its personalities and prevailing throughout its sectors. This is known as the tongue of Uversa in our superuniverse. Each local universe also has its own language. All of the higher orders of Nebadon are bilingual, speaking both the language of Nebadon and the tongue of Uversa. When two individuals from different local universes meet, they communicate in the tongue of Uversa; if, however, one of them hails from another superuniverse, they must have recourse to a translator. In the central universe there is little need of a language; there exists perfect and well-nigh complete understanding; there, only the Gods are not fully comprehended. We are taught that a chance meeting on Paradise reveals more of mutual understanding than could be communicated by a mortal language in a thousand years. Even on Salvington we “know as we are known.”

44:4.4 (503.4) The ability to translate thought into language in the morontia and spirit spheres is beyond mortal comprehension. Our rate of reducing thought to a permanent record can be so speeded up by the expert recorders that the equivalent of over half a million words, or thought symbols, can be registered in one minute of Urantia time. These universe languages are far more replete than the speech of the evolving worlds. The concept symbols of Uversa embrace

정교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상징 또는 알파벳 숫자가 48개이기 때문이다.

2. 개념 기록원. 기록원 중에서 이 둘째 집단은, 개념의 심상(心象), 즉 관념 원형을 보존하는데 관여한다. 이것은 물질 영역에 알려지지 않은, 영구 기록 형태이며, 나는 너희가 보통 언어로 기록된 것을 100년 동안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 방법에 따라 너희 시간으로 한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

3. 표의문자(表意文字) 기록원. 우리는, 너희가 사용하는 글로 표현하는 단어와 말로 표현하는 단어, 양쪽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사고(思考)를 보존할 때에는, 대개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나 표의문자 기법을 사용한다. 표의문자를 보존하는 자는 개념 기록원의 작업을 1,000배나 향상시킬 수 있다.

4. 웅변 촉진자. 이 집단의 기록원은 웅변으로 재생되도록 사고를 보존하는 과제에 배정돼 있다. 그러나 네바돈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한 유란시아 필사자가 평생 걸릴 문제를, 우리는 30분 연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처리사항을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 멈춰서 너희의 혼란되고 왜곡된 꿈꾸는 인생 기법을--곧 너희가 밤에 이 환상 속에서 수 초 동안 여러 해를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고려해 보는 것이다.

영 세계의 연설은, 오직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유란시아의 연설을 들어 온 너희를 위해 마련된, 진기한 위로잔치 가운데 하나다. 살빙톤과 에덴시아의 연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감을 주는, 음악과 기분 좋은 소리의 조화가 있다. 강렬한 이 개념들은, 영광스런 왕관에 박힌 아름다운 보석 같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다른 세계에 있는 이 실체들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인간 정신 속에 전달할 수 없다!

5. 방송 지휘자. 낙원,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의 방송(放送)은, 이 사고 보존가 집단의 일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은 방송 재료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검열하고 편집하는 자로서 근무하는데, 낙원 방송 전체가 연방우주에 적응되도록 하며, 태고 항존자의 방송을 지방우주의 개별 방언으로 각색하고 번역한다.

지방우주 방송은, 체계와 개별 행성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 이 우주 보고서의 전송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주어진 회로 안에 있는 각 세계마다 모든 보고서를 적절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항상 거꾸로 기록된다. 이 방송 지휘자들은, 모든 목적의 정보 통신을 위해 공간의 흐름을 활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숙련돼 있

more than a billion characters, although the basic alphabet contains only seventy symbols. The language of Nebadon is not quite so elaborate, the basic symbols, or alphabet, being forty-eight in number.

44:4.5 (503.5) 2. *Concept recorders*. This second group of recorders are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concept pictures, idea patterns. This is a form of permanent recording unknown on the material realms, and by this method I could gain more knowledge in one hour of your time than you could gain in one hundred years of perusing ordinary written language.

44:4.6 (503.6) 3. *Ideograph recorders*. We have the equivalent of both your written and spoken word, but in preserving thought, we usually employ concept picturization and ideograph techniques. Those who preserve ideographs are able to improve one thousandfold upon the work of the concept recorders.

44:4.7 (503.7) 4. *Promoters of oratory*. This group of recorders are occupied with the task of preserving thought for reproduction by oratory. But in the language of Nebadon we could, in a half hour's address, c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tire lifetime of a Urantia mortal. Your only hope of comprehending these transactions is to pause and consider the technique of your disordered and garbled dream life — how you can in a few seconds traverse years of experience in these fantasies of the night season.

44:4.8 (503.8) The oratory of the spirit world is one of the rare treats which await you who have heard only the crude and stumbling orations of Urantia. There is harmony of music and euphony of expression in the orations of Salvington and Edentia which are inspiring beyond description. These burning concepts are like gems of beauty in diadems of glory. But I cannot do it! I cannot convey to the human mind the breadth and depth of these realities of another world!

44:4.9 (504.1) 5. *The broadcast directors*. The broadcasts of Paradise,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ar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is group of thought conservers. They serve as censors and editors as well as coordinators of the broadcast material, making a superuniverse adaptation of all Paradise broadcasts and adapting and translating the broadcasts of the Ancients of Days into the individual tongues of the local universes.

44:4.10 (504.2) The local universe broadcasts must also be modified for reception by the systems and the individual planets. The transmittal of these space reports is carefully supervised, and there is always a back registry to insure the proper reception of every report on every world in a given circuit. These broadcast directors are technically

다.

6. **리듬 기록원**. **유란시아인**은 이 기능공들을 틀림없이 시인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의 업무는 너희가 시{詩}로 쓴 작품과는 매우 다르고, 그것을 거의 무한히 초월한다. 리듬은 모론시아 존재와 영 존재, 양쪽에 피곤을 덜어줄 것이며, 그래서 리듬 형태로 수많은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기쁨을 증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에덴시아** 집회의 시적{詩的}인 방송을 어느 정도 듣고, 성좌 재주꾼들의 풍부한 색조와 곡조를 즐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인데, 그들은 이 절묘한 형태로 자아를 표현하고 사회를 조화시키기 위해 숙련돼 있다.

7. **모론시아 기록원**. 나는 다양하게 분류된 모론시아 직무 및 영 처리사항들을 총합한 그림을 보존하는 일에 배정된, 중요한 이 사고{思考} 기록원 집단의 역할을 물질 정신에게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으며, 어설픈 묘사이겠지만,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사진작가 집단이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 진보하는 시기들의 생생한 장면과 연상{聯想}들을 보존하는데, 모론시아 기록 보관소에 그것들을 보존한다.

5. 에너지 조종자

흥미롭고 효과적인 이 기능공들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즉: 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다.

1. **물리적 에너지 조종자**. 물리적 에너지 조종자들은, 동력 지휘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해왔고, 물리적 에너지의 여러 국면에 대한 조종과 통제에 전문가다. 그들은 연방우주들의 세 가지 기본 흐름과, 30가지 보조 에너지를 분리하는 데 정통해 있다.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의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준다. 그들은 **낙원**의 시공우주 설계를 끊임없이 연구한다.

2. **정신 에너지 조종자**. 이들은 모론시아 존재 및 기타 유형의 지성 존재 사이의 상호의사소통에 전문가다. 필사자들 사이의 이 통화 형식은, **유란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존재들의 상호 통화 역량을 높여주는 전문가이며, 그들의 활동은 지성적 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독특한 모험을 포함하는데, 이 활동은 물질 정신에게 묘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기능공들은 **무한한 영**의 정신 회로를 예리하게 연구하는 자다.

expert in the utilization of the currents of space for all purposes of intelligence communication.

44:4.11 (504.3) 6. *The rhythm recorders*. Urantians would undoubtedly denominate these artisans poets, although their work is very different from, and almost infinitely transcends, your poetic productions. Rhythm is less exhausting to both morontia and spirit beings, and so an effort is frequently made to increase efficiency, as well as to augment pleasure, by executing numerous functions in rhythmic form. I only wish you might be privileged to hear some of the poetic broadcasts of the Edentia assemblies and to enjoy the richness of the color and tone of the constellation geniuses who are masters of this exquisite form of self-expression and social harmonization.

44:4.12 (504.4) 7. *The morontia recorders*. I am at a loss to know how to depict to the material mind the function of this important group of thought recorders assigned to the work of preserving the ensemble pictures of the various groupings of morontia affairs and spirit transactions; crudely illustrated, they are the group photographers of the transition worlds. They save for the future the vital scenes and associations of these progressive epochs, preserving them in the archives of the morontia halls of records.

5. THE ENERGY MANIPULATORS

44:5.1 (504.5) These interesting and effective artisans are concerned with every kind of energy: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44:5.2 (504.6) 1. *Physical-energy manipulators*. The physical-energy manipulators serve for long periods with the power directors and are experts in the manipulation and control of many phases of physical energy. They are conversant with the three basic currents and the thirty subsidiary energy segregations of the superuniverses. These beings are of inestimable assistance to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of the transition worlds. They are the persistent students of the cosmic projections of Paradise.

44:5.3 (504.7) 2. *Mind-energy manipulators*. These are the experts of intercommunication between morontia and other types of intelligent beings. This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mortals is practically nonexistent on Urantia. These are the specialists who promote the ability of the ascending morontia being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their work embraces numerous unique adventures in intellect liaison which are far beyond my power to portray to the material mind. These artisans are the keen students of the mind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3. **영적 에너지 조종자.** 영적 에너지 조종자는 흥미로운 집단이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하는 것과 똑같이, 확립된 법칙에 따라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영 세력은 이를 연구했을 때 신뢰할만한 결론을 가져오며,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취급될 수 있다. 영 세계에는 물질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 확실하고 믿을만한 법칙이 있다. 영 에너지를 다스리는 **영원한 아들**의 근본 법칙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은, 최근 수백만 년 동안,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많은 개선된 기법을 실행해 왔는데, 그 법칙은 우주들 전역에서 모론시아 계층과 기타 계층에 속하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적용된다.

4. **복합 조종자.** 이들은 잘 훈련된 모험심 있는 존재들의 집단인데, 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로서 우주들 전역에서 형태화 된, 신성한 에너지의 세 가지 원래 국면을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이들은 실제로, **지존자 하나님**의 우주 현존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예민한 인격 체인데, 이 **신격**의 인격 안에서 모든 광우주 신성이 체험으로 통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기능공들이 최근에 다소 성공을 이뤘다.

5. **운송 충고자.** 운송 스라빔에게 충고하는 이 기술 충고자 단체는, 별 연구자들과 함께, 여정을 정하는 일, 그리고 그 외에 공간 세계들에서 운반 담당 우두머리들을 돕는 일에 가장 능숙하다. 그들은 구체들의 통행을 감독하는 자이며, 모든 인간 거주 행성에 현존한다. **유란시아**에서는 70명의 운송 충고자 단체가 근무하고 있다.

6. **통신 전문가.**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는 행성들 사이와 우주들 사이의 통신을 맡는 열두 명의 기술자가 근무하고 있다. 오랜 체험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여러 범주의 통신에 적용되는 송신 및 간섭 법칙에 관한 지식에 권위자다. 이 단체는 **인력 및 단독 사자들**의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우주 메시지에 관여한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이 하는 일 대부분은 천사장 회로에서 이뤄져야 한다.

7. **휴식을 가르치는 선생.** 신성한 휴식은 영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법과 관련된다. 모론시아 에너지와 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처럼 분명하게 다시 채워지지만, 똑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다. 부득이 나는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시도하면서 미숙한 설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영 세계 출신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 활동을 정기적으로 멈추고 적당한 약속 장소로 직접 가야 하며, 거기서 우리는 신성한 휴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한다.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가 되어, 영 직무의 기

44:5.4 (505.1) 3. *Spiritual-energy manipulators.* The manipulators of spiritual energy are an intriguing group. Spiritual energy act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laws, just as does physical energy. That is, spirit force, when studied, yields dependable deductions and can be precisely dealt with, even as can the physical energies. There are just as certain and reliable laws in the spirit world as obtain in the material realms. During the last few millions of years many improved techniques for the intake of spiritual energy have been effected by these students of the fundamental laws of the Eternal Son governing spirit energy as applied to the morontia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roughout the universes.

44:5.5 (505.2) 4. *The compound manipulators.* This is the adventurous group of well-trained beings who are dedicated to the functional association of the three original phases of divine energy manifested throughout the universes as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energies. These are the keen personalities who are in reality seeking to discover the universe presence of God the Supreme, for in this Deity personality there must occur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all grand universe divinity. And to a certain extent, these artisans have in recent times met with some success.

44:5.6 (505.3) 5. *The transport advisers.* This corps of technical advisers to the transport seraphim are most proficient in collaborating with the star students in working out routings and in otherwise assisting the chiefs of transport on the worlds of space. They are the traffic supervisors of the spheres and are present on all inhabited planets. Urantia is served by a corps of seventy transport advisers.

44:5.7 (505.4) 6. *The experts of communication.* Urantia, likewise, is served by twelve technicians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communication. These long-experienced beings are expert in the knowledge of the laws of transmittal and interference as applied to the communications of the realms. This corps is concerned with all forms of space messages except those of Gravity and Solitary Messengers. On Urantia much of their work must be accomplished over the archangels' circuit.

44:5.8 (505.5) 7. *The teachers of rest.* Divine rest is associated with the technique of spiritual-energy intake. Morontia and spirit energy must be replenished just as certainly as physical energy, but not for the same reasons. I am, perforce, compelled to employ crude illustrations in my attempts to enlighten you; nevertheless, we of the spirit world must stop our regular activities periodically and betake ourselves to suitable places of rendezvous where we enter the divine rest and thus recuperate our depleting energies.

44:5.9 (505.6) You will receive your first lessons in

법을 체험하기 시작한 다음, 맨션 세계에 도달했을 때, 너희는 이 문제에 관한 첫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에 대해 알며, 공간 순례자들이 이전의 궤도를 거치고 난 후에, 길지만 활기를 되찾게 하는 **낙원**의 휴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받아야 함을 안다. 이것은 시간세계의 생애로부터 영원성의 봉사로 옮겨가는 데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상승 체험의 마지막 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채우기 위해 요구되는, 그리고 다음 단계의 끝없는 생애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분의 영 능력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휴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에너지 조종자들은 또한 열거하기에 너무 많은 수백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흡수 방식에 대해서, 능동적인 체루빔과 수동적인 사노빔 사이에 퍼져 있는 힘들의 가장 유용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관해서, 스라빔, 체루빔, 및 사노빔과 상담한다.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 전문가들은 신성한 휴식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론시아 피조물과 영 피조물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휴식은 공간의 기초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6. 설계자와 장식가

독특한 이 기능공들의 절묘한 작업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로서는, 영으로 장식하는 업무를 설명하려고 아무리 시도해 봤자, 너희의 정신 및 물질 세계에서 너희가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치량하기는 해도 가치 있는 수고가 될 것임을 물질 정신들에게 상기시켜줄 뿐이다.

이 단체에는 1,000개 이상의 하위 활동부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곱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1. **색조 수공업자.** 이들은 영을 반사하는 10,000가지 색조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전하는 절묘한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는 자다. 색조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인간 체험 속에서 이 활동과 비교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2. **소리 설계자.** 이들은 너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을 설계하는 자인데, 다양한 정체성과 모론시아 감상을 나타내는 영 파동을 묘사한다. 이 충격파는 실제로, 천상의 무리들의 적나라하고 영화로운 영과_혼을 훌륭하게 반영한 것이다.

3. **감정 설계자.** 느낌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이 존재들은, 시간세계 자녀들의 연구와 교화{敎化}를 위해서, 그리고 모론시아 진보자 및 발전하는 영들의 영감과 미화{美化}를 위해서, 모론시아의 정서와 신성의 감정을 보존하는 자다.

these matters when you reach the mansion worlds after you have become morontia beings and have begun to experience the technique of spirit affairs. You know of the innermost circle of Havona and that, after the pilgrims of space have traversed the preceding circles, they must be inducted into the long and revivifying rest of Paradise. This is not only a technical requirement of transit from the career of time to the service of eternity, but it is also a necessity, a form of rest required to replenish the energy losses incident to the final steps of the ascendant experience and to store reserves of spirit power for the next stage of the endless career.

44:5.10 (506.1) These energy manipulators also function in hundreds of other ways too numerous to catalogue, such as counseling with the seraphim, cherubim, and sanobim regarding the most efficient modes of energy intake and as to the maintenance of the most helpful balances of divergent forces between active cherubim and passive sanobim. In many other ways do these experts lend assistance to morontia and spirit creatures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 divine rest, which is so essential to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basic energies of space.

6. THE DESIGNERS AND EMBELLISHERS

44:6.1 (506.2) How I wish I knew how to portray the exquisite work of these unique artisans! Every attempt on my part to explain the work of spirit embellishment would only recall to material minds your own pitiful but worthy efforts to do these things on your world of mind and matter.

44:6.2 (506.3) This corps, while embracing over one thousand subdivisions of activity, is grouped under the following seven major heads:

44:6.3 (506.4) 1. *The craftworkers of color.* These are they who make the ten thousand color tones of spirit reflection peal forth their exquisite messages of harmonious beauty. Aside from color perception there is nothing in human experience to which these activities may be compared.

44:6.4 (506.5) 2. *The sound designers.* Spirit waves of diverse identity and morontia appreciation are depicted by these designers of what you would call sound. These impulses are in reality the superb reflections of the naked and glorious spirit-souls of the celestial hosts.

44:6.5 (506.6) 3. *The emotion designers.* These enhancers and conservators of feeling are those who preserve the sentiments of morontia and the emotions of divinity for the study and edification of the children of time and for the inspiration and beautification of morontia progressors and

4. **냄새의 예술가.** 숭고한 영 활동을, 육체로 화학적 냄새를 인식하는 것에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해도 **유란시아** 필사자는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기능공들은, 진보하는 빛의 자녀들의 교화{敎化}와 기쁨을 위해서 다양한 조화를 창조한다. 너희는 이 유형의 영적 장엄함에 조금이라도 비교될만한 것을 이 땅에 전혀 갖고 있지 않다.

5. **풍채 장식가.** 이 기능공은 자신을 장식하는 예술, 또는 피조물을 미화하는 기술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이 존재들이 혼합되어 나타내는 전체효과에서, 다른 모론시아 계층과 영 계층에게 배정된 위치상의 가치를 통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개의 모론시아 피조물과 영 피조물 안에 광대하고 기쁨에 넘치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전념한다. 생생한 음악 선율, 냄새, 풍경을 너희가 마련하듯이, 이 예술가들은 초물질적 존재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들을 섞어서 영광스런 송가{頌歌}처럼 되게 한다.

6. **취향 설계자.** 너희에게 이 기능공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은 모론시아 취향을 개선하는 자이고, 또한 진화하는 영 감각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어렵듯이나마 제시할 수 있겠다.

7. **모론시아 합성가.** 이들은 뛰어난 기능공인데, 남들이 모두 각자 공헌한 뒤에, 모론시아 전체 효과 완결시키고 마무리하는 가필{加筆}을 하며, 이처럼 신성하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자에게 영감을 주도록 묘사하는 일, 즉 영 존재들과 그 모론시아 동역자들에게 영속적인 영감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너희는, 모론시아 세계와 영 세계의 예술적 영광과 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먼저 동물적인 육체에서 해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조화 일꾼

혹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할지 모르지만, 이 예술가들은, 음악, 미술, 또는 기타 비슷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 세계에 현존하지만 필사자가 인식할 수 없는 특화된 세력과 에너지를 조종하거나 조직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비교될만한 최소한의 근거라도 내가 가졌더라면, 영을 성취하는 이 독특한 분야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겠지만, 나는 절망스럽다--이 분야의 천상의 예술성을 필사 정신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암시할 수 있겠다:

아름다움, 리듬, 및 조화{調和}는 지성적으로

advancing spirits.

44:6.6 (506.7) 4. *The artists of odor.* This comparison of supernal spirit activities to the physical recognition of chemical odors is, indeed, unfortunate, but Urantia mortals could hardly recognize this ministry by any other name. These artisans create their varied symphonies for the edification and delight of the advancing children of light. You have nothing on earth to which this type of spiritual grandeur can be even remotely compared.

44:6.7 (506.8) 5. *The presence embellishers.* These artisans are not occupied with the arts of self-adornment or the technique of creature beautification. They are devoted to the production of multitudinous and joyous reactions in individual morontia and spirit creatures by dramatizing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 through the positional values assigned to different morontia and spirit orders in the composite ensembles of these diversified beings. These artists arrange supermaterial beings as you would living musical notes, odors, sights, and then blend them into the anthems of glory.

44:6.8 (506.9) 6. *The taste designers.* And how can you be told of these artists! Faintly I might suggest that they are improvers of morontia taste, and they also endeavor to increase the appreciation of beauty through the sharpening of the evolving spirit senses.

44:6.9 (507.1) 7. *The morontia synthesizers.* These are the master craftsmen who, when all others have made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then add the culminating and finishing touches to the morontia ensemble, thus achieving an inspiring portrayal of the divinely beautiful, an enduring inspiration to spirit beings and their morontia associates. But you must await your deliverance from the animal body before you can begin to conceive of the artistic glories and aesthetic beautie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7. THE HARMONY WORKERS

44:7.1 (507.2) These artists are not concerned with music, painting, or anything similar, as you might be led to surmise. They are occupied with the manipulation and organization of specialized forces and energies which are present in the spirit world, but which are not recognized by mortals. If I had the least possible basis for comparison, I would attempt to portray this unique field of spirit achievement, but I despair — there is no hope of conveying to mortal minds this sphere of celestial artistry. Nevertheless, that which cannot be described may still be implied:

44:7.2 (507.3) Beauty, rhythm, and harmony are

관련돼 있고 영적으로 비슷하다. 진실, 사실, 및 관계는 지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개념과 관련돼 있다. 선함, 의로움, 및 응보 {또는 공의}는 철학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생생한 진리 및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함께 묶여 있다.

참된 철학의 시공우주 개념들, 천상의 예술성에 대한 묘사, 또는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묘사하려는 필사자의 시도는, 그런 피조물이 진보하려는 시도가 통합되지 않는 한, 결코 참되게 만족될 수 없다. 진화하는 피조물 범위 안에서 이런 신성한 충동의 표현은, 지적으로 참되고,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선할지 모르지만, 이런 진리의 실체성, 아름다움의 의미, 그리고 선함의 가치들이, 예술가, 과학자, 또는 철학자의 인생 체험에서 통합되지 않는 한, 표현하는 참된 혼은 결여돼 있다.

이 신성한 특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는 천사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끝없이 성취하는 기쁨으로--곧 진화 체험에서 영원한 진리, 보편적 아름다움, 및 신성한 선함을 체험으로 혼합하여-- 통합된 자아를 실현하는 영원히 진보하는 수준에서, 무제한으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8. 필사자의 열망과 모른시아 성취

천상의 기능공들은, **유란시아** 같은 물질 행성에서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필사자 인종 중에서 천부적으로 은사{恩賜}를 받은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 본부로부터 때때로 온다. 이 기능공들은 그렇게 배정되면, 진보를 담당하는 행성 천사들의 감독 아래서 일시적으로 활동한다. 선천적 재능을 소유하고, 특별한 이전{以前} 체험을 가진 **조율사** 역시 소유하고 있는 이 필사 예술가들을 도우려고 애쓰면서, 스랍 무리는 이 기능공들과 협동한다.

특별한 인간 역량에는 세 가지 가능한 근원이 있다: 밑바닥에는 **언제나** 천부적 소질, 즉 타고난 소질이 있다. 특별한 역량은 **하나님**들의 독단적 선물인 경우가 결코 없으며; 모든 빼어난 재주는 항상 선조에 근거한다. 이 천부적 역량에 덧붙여서, 또는 거기에 보충해서, **사고 조율사**의 이끄심이 제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에게 내주하는 **조율사**는, 다른 세계들에서 또는 다른 필사 피조물 안에서, 실제적이고 진실된 그런 비슷한 체험을 이미 가졌을지도 모른다. 인간 정신과 내주하는 **조율사**, 이 둘이 색다르게 숨겨 있는 그런 경우에, 이 재주를 조화시키는 존재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그 영역의 교화를 위해 그들의 증진된 설명을 시도하고 항상 완전하게 하는 이상{理想}을 추구하도록 이 필사자들을 도

intellectually associated and spiritually akin. Truth, fact, and relationship are intellectually inseparable and associated with the philosophic concepts of beauty. Goodness,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philosophically interrelated and spiritually bound up together with living truth and divine beauty.

44:7.3 (507.4) Cosmic concepts of true philosophy, the portrayal of celestial artistry, or the mortal attempt to depict the human recognition of divine beauty can never be truly satisfying if such attempted creature progression is unified. These expressions of the divine urge within the evolving creature may be intellectually true, emotionally beautiful, and spiritually good; but the real soul of expression is absent unless these realities of truth, meanings of beauty, and values of goodness are unified in the life experience of the artisan, the scientist, or the philosopher.

44:7.4 (507.5) These divine qualities are perfectly and absolutely unified in God. And every God-knowing man or angel possesses the potential of unlimited self-expression on ever-progressive levels of unified self-realization by the technique of the never-ending achievement of Godlikeness — the experiential blending in the evolutionary experience of eternal truth, universal beauty, and divine goodness.

8. MORTAL ASPIRATIONS AND MORONTIA ACHIEVEMENTS

44:8.1 (507.6) Although celestial artisans do not personally work on material planets, such as Urantia, they do come, from time to time,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to proffer help to the naturally gifted individuals of the mortal races. When thus assigned, these artisans temporarily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lanetary angels of progress. The seraphic hosts co-operate with these artisans in attempting to assist those mortal artists who possess inherent endowments, and who also possess Adjusters of special and previous experience.

44:8.2 (507.7) There are three possible sources of special human ability: At the bottom *always* there exists the natural or inherent aptitude. Special ability is never an arbitrary gift of the Gods; there is always an ancestral foundation for every outstanding talent. In addition to this natural ability, or rather supplemental thereto, there may be contributed the leadings of the Thought Adjuster in those individuals whose indwelling Adjusters may have had actual and bona fide experiences along such lines on other worlds and in other mortal creatures. In those cases where both the human mind and the indwelling Adjuster are unusually skillful, the spirit artisans may be delegated to act as harmonizers of these talents and otherwise to

와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 영 기능공들이 파견될 수 있다.

영 기능공들의 지위에는 신분계층이 없다. 네가 아무리 저급하게 기원했더라도, 네가 표현하는 역량과 은사를 소유했다면, 위를 향해 상승할 때 모론시아 체험과 영적 달성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정당한 진가를 인정받을 것이다. 모론시아 생애가 충분히 보상하고 전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만큼, 인간이 유전적 장애를 겪거나 필사자의 환경이 결핍될 수 없다. 예술적 성취, 그리고 풍부한 표현의 자아_실현으로 얻는 그런 만족감은 모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네가 몸소 노력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마침내, 진화적으로 진부한 자의 포부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들이 재주와 역량을 독단적으로 증여하지 않지만, 인간의 고상한 열망 전체의 만족이 달성되도록, 그리고 숭고한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든 갈망이 만족되도록 마련해 주신다.

그러나 모든 인간마다 기억해야 한다:육신 속에 있는 필사자를 애타게 만들 정도 이상{以上}의 열망은, 모론시아 생애와 영 생애 동안 바로 이 필사자에게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하는 모론시아인은, 개인적으로 가졌던 순전히 자기본위적인 열망과 이기적 열정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키기를 배운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갈망했던, 그리고 환경이 너희를 그토록 계속 거부했던 그것들을, 모론시아 생애에서 참된 모타 통찰력을 획득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열망을 완전히 만족시킬 모든 기회를 아주 분명히 부여받을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자신의 영 생애를 개시하기 위해서 지방우주를 떠나기 전에, 모든 지적, 예술적, 및 사회적 갈망, 또는 자신의 필사자 실존이나 모론시아 실존 수준의 영원한 특징인 참된 야망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만족감을 평등하게 성취한 것이지, 체험적으로 똑같은 지위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숨씨, 기법, 및 표현에서 독자적 개체성이 완벽하게 소멸된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보나** 생애의 최종 궤도를 마치기 전에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차이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낙원** 거주자는 개인 체험의 유한절대적 차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차이는 오직 궁극적인 피조물 신분을--곧 필사 완결성취자들의 일곱째 영 운명 단계를--집단으로 달성함으로써만 평준화 될 수 있다.

이것이 천상의 기능공들, 즉 **낙원 창조주**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묘사하여, 건축양식 구체들을 그토록 영화롭게 만드는, 절묘한 일꾼들의 시공우주 단체에 관한 이야기다.

assist and inspire these mortals to seek for ever-perfecting ideals and to attempt their enhanced portrayal for the edification of the realm.

44:8.3 (508.1) There is no caste in the ranks of spirit artisans. No matter how lowly your origin, if you have ability and the gift of expression, you will gain adequate recognition and receive due appreciation as you ascend upward in the scale of morontia experience and spiritual attainment. There can be no handicap of human heredity or deprivation of mortal environment which the morontia career will not fully compensate and wholly remove. And all such satisfactions of artistic achievement and expressionful self-realization will be effected by your own personal efforts in progressive advancement. At last the aspirations of evolutionary mediocrity may be realized. While the Gods do not arbitrarily bestow talents and ability upon the children of time, they do provide for the attainment of the satisfaction of all their noble longings and for the gratification of all human hunger for supernal self-expression.

44:8.4 (508.2) But every human being should remember: Many ambitions to excel which tantalize mortals in the flesh will not persist with these same mortals in the morontia and spirit careers. The ascending morontians learn to socialize their former purely selfish longings and egoistic ambitions. Nevertheless, those things which you so earnestly longed to do on earth and which circumstances so persistently denied you, if, after acquiring true mota insight in the morontia career, you still desire to do, then will you most certainly be granted every opportunity fully to satisfy your long-cherished desires.

44:8.5 (508.3) Before ascending mortals leave the local universe to embark upon their spirit careers, they will be satiated respecting every intellectual, artistic, and social longing or true ambition which ever characterized their mortal or morontia planes of existence. This is the achievement of equality of the satisfaction of self-expression and self-realization but not the attainment of identical experiential status nor the complete obliteration of characteristic individuality in skill, technique, and expression. But the new spirit differential of personal experiential attainment will not become thus leveled off and equalized until after you have finished the last circle of the Havona career. And then will the Paradise residents b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adjusting to that absonite differential of personal experience which can be leveled off only by the group attainment of the ultimate of creature status — the seventh-stage-spirit destiny of the mortal finaliters.

44:8.6 (508.4)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celestial artisans, that cosmopolitan body of exquisite workers who do so much to glorify the architectural spheres with the artistic portrayals of

the divine beauty of the Paradise Creators.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작성 했음]

44:8.7 (508.5) [Indi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45편. 지역 체계 경영

⇨ 044

유란시아 책

046 ⇨

II 부. 지방우주

제45편
지역 체계 경영

섹션

소개

1. 과도기 문화 세계
2. 체계 주권자
3. 체계 정부
4. 24명의 조연자
5. 물질 아들
6. 아담의 상승자 훈련
7. 멜기세덱 학교

소개

사타니아의 행정부 중심은 57개의 건축양식 구체 집단--곧 **예루셈** 자체, 일곱 주요 위성, 및 마흔아홉 하위{下位}위성--으로 이뤄져 있다. 체계 수도인 **예루셈**은 **유란시아**보다 거의 100배 크기에 해당하지만, 그 중력은 약간 작다. **예루셈**의 주요 위성은 일곱 과도기 세계인데, 각각 **유란시아**보다 약 열 배 크기에 달하며, 한편 이 과도기 구체의 일곱 하위위성은 **유란시아**와 크기가 비슷하다.

일곱 맨션 세계는 1_번 과도기 세계의 일곱 하위위성이다.

57개 건축양식 세계로 이뤄진 이 체계 전체는, 특별하게 창조된 이 구체들을 물리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확립된 기법에 따라서, **사타니아 동력 중심**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조정함으로, 독립적으로 빛을 받고 가열되며,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 구체들은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밖에 원주민 스포르나기아가 이 구체들을 유지한다.

PAPER 45

THE LOCAL SYSTEM
ADMINISTR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ransitional Culture Worlds
2. The System Sovereign
3. The System Government
4.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5. The Material Sons
6. Adamic Training of Ascenders
7. The Melchizedek Schools

INTRODUCTION

45:0.1 (509.1)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Satania consists of a cluster of architectural spheres, fifty-seven in number — Jerusalem itself, the seven major satellites, and the forty-nine subsatellites. Jerusalem, the system capital, is almost one hundred times the size of Urantia, although its gravity is a trifle less. Jerusalem's major satellites are the seven transition worlds, each of which is about ten times as large as Urantia, while the seven subsatellites of these transition spheres are just about the size of Urantia.

45:0.2 (509.2) The seven mansion worlds are the seven subsatellites of transition world number one.

45:0.3 (509.3) This entire system of fifty-seven architectural worlds is independently lighted, heated, watered, and energized by the co-ordination of the Satania Power Center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echnique of the physical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of these specially created spheres. They are also physically cared for and otherwise maintained by the native spornagia.

1. 과도기 문화 세계

예루셈 주위를 돌고 있는 일곱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球體}로 알려져 있다. 그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셈** 최고 행정 협의회에서 임명된다. 이 구체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가 매겨지고 이름이 주어진다:

1_번. 완결성취자 세계. 이것은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단체의 본부이며, 영접{迎接} 세계들, 즉 필사자를 상승시키는 기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일곱 맨션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 일곱 맨션 세계의 거주자는 누구든지 완결성취자 세계를 방문할 수 있다. 운송 스라빔이 이 순례 여행에서 상승하는 인격체들을 왕복 운반하는데, 이 여행은 과도기 필사자가 궁극의 운명에 관한 신앙을 키우도록 설계돼 있다. 완결성취자들 및 그들의 구조물은 대개 모론시아 시력으로 감지될 수 없지만, 때때로, 이 높은 영 인격체들을 너희가 잠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에너지 변형자 및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만들어 줄 때, 너희는 오싹할 만큼 감동하게 될 것인데, 이 인격체들은 **낙원** 상승을 실제로 완성했고, 너희가 거대한 이행업무를 완결할 수 있고 완결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보증하려고, 너희가 이 긴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세계들로 돌아왔다. 맨션 세계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완결성취자가 가시화{可視化}되는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완결성취자 구체로 간다.

2_번. 모론시아 세계. 이 행성은 모론시아 생애를 감독하는 자들의 본부이며, 모론시아 우두머리들이 자신의 동역자와 도우미들, 즉 모론시아 존재 및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다 훈련하는 일곱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일곱 맨션 세계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너희는 또한 모론시아 접촉을 점점 더 하게 되는 이 문화 및 사회 구체들을 통해서 진보할 것이다.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 둘째 맨션 세계로 진보할 때, 2_번 과도기 본부, 즉 모론시아 세계에 방문자로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도 그렇게 계속된다. 그리고 이 여섯 문화 구체 가운데 어느 하나에든지 현존하게 될 때, 연합된 집단 활동을 하는 둘러싼 일곱 세계 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는 초청 받아서 방문자 또는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_번. 천사의 세계. 이것은 체계 활동에 참여하는 스랍 무리 전체의 본부이며, 천사의 훈련과 훈육을 맡은 일곱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계들은 스랍이 사교하는 구체다.

4_번. 최고천사 세계. 이 구체는 **찬란한 저녁 별들의 사타니아** 고향이고, 대등한 존재와 거의 대등한 존재들이 모이는 방대한 중앙광장이다. 이

1. TRANSITIONAL CULTURE WORLDS

45.1.1 (509.4) The seven major worlds swinging around Jerusalem are generally known as the transitional culture spheres. Their rulers are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Jerusalem supreme executive council. These spheres are numbered and named as follows:

45.1.2 (509.5) *Number 1. The Finaliter World.* This is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 corps of the local system and is surrounded by the receiving worlds, the seven mansion worlds, dedicated so fully to the scheme of mortal ascension. The finaliter world is accessible to the inhabitants of all seven mansion worlds. Transport seraphim carry ascending personalities back and forth on these pilgrimages, which are designed to cultivate their faith in the ultimate destiny of transition mortals. Although the finaliters and their structures are not ordinarily perceptible to morontia vision, you will be more than thrilled, from time to time, when the energy transform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enable you momentarily to glimpse these high spirit personalities who have actually completed the Paradise ascension, and who have returned to the very worlds where you are beginning this long journey, as the pledge of assurance that you may and can complete the stupendous undertaking. All mansion world sojourners go to the finaliter sphere at least once a year for these assemblies of finaliter visualization.

45.1.3 (510.1) *Number 2. The Morontia World.* This planet i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visors of morontia life and is surrounded by the seven spheres whereon the morontia chiefs train their associates and helpers, both morontia beings and ascending mortals.

45.1.4 (510.2) In passing through the seven mansion worlds, you will also progress through these cultural and social spheres of increasing morontia contact. When you advance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mansion world, you will become eligible for a visitor's permit to transitional headquarters number two, the morontia world, and so on. And when present on any one of these six cultural spheres, you may, on invitation, become a visitor and observer on any of the seven surrounding worlds of associated group activities.

45.1.5 (510.3) *Number 3. The Angelic World.* This is the headquarters of all the seraphic hosts engaged in system activities and is surrounded by the seven worlds of angelic training and instruction. These are the seraphic social spheres.

45.1.6 (510.4) *Number 4. The Superangel World.* This sphere is the Satania home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nd a vast concourse of co-ordinate and near-co-ordinate beings. The seven

세계의 일곱 위성은, 지명되지 않은 이 천상의 존재들의 일곱 주요 집단에게 배정돼 있다.

5_번. 아들들의 세계. 이 행성은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신성한 **아들**의 본부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는, 신성하게 관계된 이 아들들이 개별적으로 무리 짓는 어떤 일에 전념한다.

6_번.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 체계에서 회합하는 장소로 쓰인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은, 이 다양한 계층의 개별 집단에 배정돼 있다. 그러나 과도기 세계 6_번에는 **영**의 대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수도원에서 관측될 그런 현존도 없으며,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는 **네바돈**에 어디든지 있다.

7_번. 아버지의 세계. 이것은 그 체계에서 고요한 구체다. 어떤 집단의 존재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빛나는 위대한 성전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안에서 식별될 수 없다. 어느 체계의 세계에서 온 어떤 존재든지, 경배자로서 환영받는다.

아버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은 특이한 체제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타니아**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루시퍼** 반역으로 구금된 집단들을 위한 유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좌 수도인 **에덴시아**에는 이와 비슷한 감옥 세계가 하나도 없으며; **사타니아** 반역에서 그 반역자들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스라빔과 체루빔이 **예루셈**의 이 격리된 세계에 오래 전부터 구금돼 있다.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무는 자로서, 너는 **만유의 아버지**의 구체인 일곱째 과도기 세계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사타니아** 감옥 세계들도 방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루시퍼**를 비롯해서,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서 **루시퍼**를 따랐던 인격체 대부분이 지금 감금돼 있다. 그리고 이 슬픈 장면을 최근의 이 시절에 관람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우주 **아버지**인 **미가엘**이 제시한 구원을 거부했던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동역자들의 죄를 **태고 항존자**들이 판결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에게 하나의 엄중한 경고로서 계속 이 바지할 것이다.

2. 체계 주권자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 체계의 최고 행정관은, 1차 **라노난덱 아들**인 **체계 주권자**다. 우리 지방우주에서는 이 주권자들이, 큰 행정 책임, 즉 유별난 개인적 특권을 갖고 있다. 심지어 **오르본톤**에서도, 체계 직무를 지휘하는 동안 그런 유별나게 광범한 개인적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체계 주권자**들에게 승인할 만큼, 그렇게 모든 우주가

satellites of this world are assigned to the seven major groups of these unnamed celestial beings.

45:1.7 (510.5) *Number 5. The World of the Sons.*

This planet is the headquarters of the divine Sons of all orders, including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 surrounding seven worlds are devoted to certain individual groupings of these divinely related sons.

45:1.8 (510.6) *Number 6. The World of the Spirit.*

This sphere serves as the system rendezvous of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ts seven surrounding satellites are assigned to individual groups of these diverse orders. But on transition world number six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the Spirit, neither is such a presence to be observed on the system capitals; the Divine Minister of Salvation is *everywhere* in Nebadon.

45:1.9 (510.7) *Number 7. The World of the Father.*

This is the silent sphere of the system. No group of beings is domiciled on it. The great temple of light occupies a central place, but no one can be discerned therein. All beings of all the system worlds are welcomed as worshipers.

45:1.10 (510.8) The seven satellites surrounding the

Father's world are variously utilized in the different systems. In Satania they are now used as the detention spheres for the interned group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 constellation capital, Edentia, has no analogous prison worlds; the few seraphim and cherubim who went over to the rebels in the Satania rebellion have been long since confined on these isolation worlds of Jerusem.

45:1.11 (510.9) As a sojourner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you have access to the seventh transition world, the sphe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re also permitted to visit the Satania prison worlds surrounding this planet, whereon are now confined Lucifer and the majority of those personalities who followed him in rebellion against Michael. And this sad spectacle has been observable during these recent ages and will continue to serve as a solemn warning to all Nebadon until the Ancients of Days shall adjudicate the sin of Lucifer and his fallen associates who rejected the salvation proffered by Michael, their universe Father.

2. THE SYSTEM SOVEREIGN

45:2.1 (511.1) The chief executive of a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is a primary Lanonandek Son, the System Sovereign. In our local universe these sovereigns are intrusted with large executive responsibilities, unusual personal prerogatives. Not all universes, even in Orvonton, are so organized as to permit the System Sovereigns to

조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바돈** 전체 역사에서, 속박 받지 않은 이 행정관들은 오직 세 번 불충성을 범했다. **사타니아** 체계에서 생긴 **루시퍼** 반역이 마지막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널리 퍼졌다.

사타니아에서는, 불운한 이 격변이 있은 후에도, 체계를 경영하는 기법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현재 **체계 주권자**는, **태고 항존자들**이 **루시퍼**의 후계자인 **라나휘지**에게 아직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지 않고 지금 **성좌 아버지**들의 감독 하에 있는 어떤 문제 외에는, 그의 비열한 전임자에게 부여했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사타니아의 현재 우두머리는 한 명의 품위 있고 명철한 통치자이며, 반역가능성을 시험받은 주권자다. 보조 **체계 주권자**로서 근무할 때, **라나휘지**는 **네바돈** 우주에서 초기 격변 중에 **미가엘**에게 충성했다. 이 강력하고 명철한 **사타니아**의 주(主)는 믿을만하고 시험 받은 경영자다. **네바돈**에서 두 번째 체계 반역이 있을 때, 즉 **체계 주권자**가 실수로 어둠에 빠지게 됐을 때, 죄를 범하는 우두머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라나휘지**가 정부의 지휘권을 압류했으며, 그리하여 불운한 그 체계 본부 세계들 또는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비교적 적은 인격체가 손실되도록 체계의 직무를 관장했다. **라나휘지**는 **미가엘**을 섬기면서, 그리고 뛰어난 권세와 선임(先任) 지위를 가진 형제가 태만하던 상황에 직면하여, **네바돈** 전체에서 그렇게 충실히 활동했던 유일한 1차 **라노난덱 아들**이라는 영예를 간직하고 있다. 예전의 어리석은 행동 결과를 극복하고 반역의 산물이 **사타니아**에서 제거될 때까지, **라나휘지**는 아마 **예루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나휘지는,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의 직무가 자신의 관할권으로 모두 돌아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 세계들의 복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란시아**에 종종 방문하고 있다. 이 **주권자**는 다른 정상 체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 통치자들, 즉 **행성 왕자** 및 격리된 세계의 거주하는 총독들의 체계 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행성의회는 때때로 체계 본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올 때”-- 소집된다.

매주 한 번, **예루셈**에서는 10일마다, **주권자**는 본부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격체 계층으로 구성된 어떤 한 집단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예루셈**의 매우 흥미롭게 비공식적인 시간이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행사다. **예루셈**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이 집단과 **체계 주권자** 사이에 최고의 우애가 있다.

exercise such unusually wide powers of personal discretion in the direction of system affairs. But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these untrammelled executives have exhibited disloyalty only three times. The Lucifer rebellion in the system of Satania was the last and the most widespread of all.

45:2.2 (511.2) In Satania, even after this disastrous upheaval, absolutely no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technique of system administration. The present System Sovereign possesses all the power and exercises all the authority that were invested in his unworthy predecessor except for certain matters now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which the Ancients of Days have not yet fully restored to Lanaforge, the successor of Lucifer.

45:2.3 (511.3) The present head of Satania is a gracious and brilliant ruler, and he is a rebellion-tested sovereign. When serving as an assistant System Sovereign, Lanaforge was faithful to Michael in an earlier upheaval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is mighty and brilliant Lord of Satania is a tried and tested administrator. At the time of the second system rebellion in Nebadon, when the System Sovereign stumbled and fell into darkness, Lanaforge, the first assistant to the erring chief, seized the reins of government and so conducted the affairs of the system that comparatively few personalities were lost either on the headquarters worlds or on the inhabited planets of that unfortunate system. Lanaforge bear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primary Lanonandek Son in all Nebadon who thus functioned loyally in the service of Michael and in the very presence of the default of his brother of superior authority and antecedent rank. Lanaforge will probably not be removed from Jerusem until all the results of the former folly have been overcome and the products of rebellion removed from Satania.

45:2.4 (511.4) While all the affairs of the isolated worlds of Satania have not been returned to his jurisdiction, Lanaforge discloses great interest in their welfare, and he is a frequent visitor on Urantia. As in other and normal systems, the Sovereign presides over the system council of world rulers, the Planetary Princes and the resident governors general of the isolated worlds. This planetary council assembles from time to time on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 “When the Sons of God come together.”

45:2.5 (511.5) Once a week, every ten days on Jerusem, the Sovereign holds a conclave with some one group of the various orders of personalities domiciled on the headquarters world. These are the charmingly informal hours of Jerusem, and they are never-to-be-forgotten occasions. On Jerusem there exists the utmost

독특한 이 회합은, 체계 수도의 거대한 회집 장소인 유리바다에서 이뤄진다. 그것은 순전히 사회적이고 영적인 행사이며; 행성 경영에 속하거나, 심지어 상승 계획에 속하는 것도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셈** 동료 거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때 모이게 된다. 이런 주간{週刊} 휴양에서 **주권자**에게 초대 받지 않는 그런 집단들은 그들 자체의 본부에 모인다.

3. 체계 정부

한 지역 체계의 최고 행정관, 즉 **체계 주권자**는 첫째 및 둘째 보좌관 역할을 하는, 둘 또는 세 명의 **라노난덱 아들**의 후원을 항상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일곱 **라노난덱**으로 구성된 한 참모진이 **사타니아** 체계를 경영한다:

1. **체계 주권자** --**라나휘지**, 1차 계층 중에서 2,709_번이고, 배신자 **루시퍼**의 자리를 계승한 자.

2. **제1 보조 주권자** --**만수로티아**, 3차 **라노난덱** 가운데 17,841_번. 그는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에 파견됐다.

3. **제2 보조 주권자** --**사디브**, 3차 계층 가운데 271,402_번. **사디브** 역시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에 왔다.

4. **체계 관리자** --**홀단트**, 3차 단체 가운데 19_번, 필사자 실존 계층보다 위에 있는 모든 억류된 영의 주인이자 통제관. **홀단트**도 똑같이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5. **체계 기록원** --**빌톤**, **사타니아**에서 **라노난덱** 사역의 비서, 3번째 계층 중에서 374번. **빌톤**은 원본 **라나휘지** 집단의 구성원이었다.

6. **증여 지휘자** --**휘르탄트**, 2차 **라노난덱**으로 구성된 예비군 중에서 319,847_번이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예루셈**에 옮겨진, 모든 우주 활동의 임시 지휘자. **휘르탄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00년간 **라나휘지**의 참모진에 배속돼 왔다.

7. **고위{高位} 조언자** --**하나바르드**, 우주 조언자 및 조정자들이 속하는 고위 단체의 구성원이며, 1차 **라노난덱 아들** 중에서 67_번. 그는 **사타니아**의 행정 협의회의 대리 의장{議長} 역할을 한다. **하나바르드**는 **루시퍼** 반역 이후에 이 계층 중에서 열두 번째로 **예루셈**에서 근무하는 자다.

fraternity between all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and between each of these groups and the System Sovereign.

45:2.6 (511.6) These unique assemblages occur on the sea of glass, the great gathering field of the system capital. They are purely social and spiritual occasions; nothing pertaining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or even to the ascendant plan is ever discussed. Ascending mortals come together at these times merely to enjoy themselves and to meet their fellow Jerusemites. Those groups which are not being entertained by the Sovereign at these weekly relaxations meet at their own headquarters.

3. THE SYSTEM GOVERNMENT

45:3.1 (512.1) The chief executive of a local system, the System Sovereign, is always supported by two or three Lanonandek Sons, who function as first and second assistants. But at the present time the system of Satania is administered by a staff of seven Lanonandeks:

45:3.2 (512.2) 1. *The System Sovereign* — Lanaforge, number 2,709 of the primary order and successor to the apostate Lucifer.

45:3.3 (512.3) 2. *The first assistant Sovereign* — Mansurotia, number 17,841 of the tertiary Lanonandeks. He was dispatched to Satania along with Lanaforge.

45:3.4 (512.4) 3. *The second assistant Sovereign* — Sadib, number 271,402 of the tertiary order. Sadib also came to Satania with Lanaforge.

45:3.5 (512.5) 4. *The custodian of the system* — Holdant, number 19 of the tertiary corps, the holder and controller of all interned spirits above the order of mortal existence. Holdant likewise came to Satania with Lanaforge.

45:3.6 (512.6) 5. *The system recorder* — Vilton, secretary of the Lanonandek ministry of Satania, number 374 of the third order. Vilton was a member of the original Lanaforge group.

45:3.7 (512.7) 6. *The bestowal director* — Fortant, number 319,847 of the reserves of the secondary Lanonandeks and temporary director of all universe activities transplanted to Jerusem since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Fortant has been attached to the staff of Lanaforge for nineteen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45:3.8 (512.8) 7. *The high counselor* — Hanavard, number 67 of the primary Lanonandek Sons and a member of the high corps of universe counselors and co-ordinators. He functions as acting chairman of the executive council of Satania. Hanavard is the twelfth of this order so to serve on

일곱 **라노난덱**으로 구성된 이 행정 집단은, **루시퍼** 반역의 긴급성 때문에 필요하게 된, 확대된 응급 경영을 성립시킨다. **예루셈**에는 부속 법정들만 있는데, 이것은 체계가 경영 단위이고 판결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라노난덱** 경영은, **예루셈** 행정 협의회, 즉 **사타니아**의 최고 자문기관의 후원을 받는다. 이 위원회는 열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하나바르드**, **라노난덱** 의장.
2. **라나휘지**, 체계 주권자.
3. **만수로티아**, 제1 보좌관 주권자.
4. **사타니아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
5. **사타니아 생명 운반자**들의 대리 지휘관.
6. **사타니아** 완결성취자들의 우두머리.
7. **사타니아**의 원본 **아담**, **물질 아들**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8. **사타니아** 스랍 무리의 지휘관.
9. **사타니아** 물리 통제관들의 우두머리.
10.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지휘관.
11. 체계 중도 피조물의 대리 지휘관.
12. 상승하는 필사자 단체의 대리 우두머리.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 있는 최고 협의회에 참석해서 지역 체계를 대표할, 세 명의 요원을 주기적으로 선택하지만, 이 대표권은 반역 때문에 중지됐다. **사타니아**는 지금 지방우주 본부에 한 명의 참관인을 두지만, **미가엘** 증여 이후부터 이 체계는 **에덴시아** 입법부에 보낼 열 명의 요원을 다시 선출해 왔다.

4. 24명의 조연자

예루셈에서 천사들이 거주하는 일곱 궤도 중앙에는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 즉 24조연자의 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게시자 요한**은 그들을 24장로라고 불렀다.“그리고 보좌{寶座} 주위에 24개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24장로가 앉은 것을 내가 봤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집단 중앙에 있는 보좌는, 주재{主宰}하는 천사장의 재판석, 즉 **사타니아** 전체를 향한 자비와 응보의 부활 출석점호를 하는 보좌다. 이 재판석은 **예루셈**에 항상 있

Jerusem since the Lucifer rebellion.

45:3.9 (512.9) This executive group of seven Lanonandeks constitutes the expanded emergency administration made necessary by the exigencie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re are only minor courts on Jerusem since the system is the unit of administration, not adjudication, but the Lanonandek administration is supported by the Jerusem executive council, the supreme advisory body of Satania. This council consists of twelve members:

- 45:3.10 (512.10) 1. Hanavard, the Lanonandek chairman.
- 45:3.11 (512.11) 2.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 45:3.12 (512.12) 3. Mansurotia, the first assistant Sovereign.
- 45:3.13 (512.13) 4. The chief of Satania Melchizedeks.
- 45:3.14 (512.14) 5. The acting director of the Satania Life Carriers.
- 45:3.15 (512.15) 6. The chief of the Satania finaliters.
- 45:3.16 (512.16) 7. The original Adam of Satania, the supervising head of the Material Sons.
- 45:3.17 (512.17) 8. The director of the Satania seraphic hosts.
- 45:3.18 (512.18) 9. The chief of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 45:3.19 (512.19) 10. The director of the system Morontia Power Supervisors.
- 45:3.20 (513.1) 11. The acting director of system midway creatures.
- 45:3.21 (513.2) 12. The acting head of the corps of ascending mortals.

45:3.22 (513.3) This council periodically chooses three members to represent the local system on the supreme council at universe headquarters, but this representation is suspended by rebellion. Satania now has an observer at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but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the system has resumed the election of ten members to the Edentia legislature.

4.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45:4.1 (513.4) At the center of the seven angelic residential circles on Jerusem is located the headquarters of the Urantia advisory council,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John the Revelator called them the four and twenty elders: “And round about the throne were four and twenty seats, and upon the seats I saw four and twenty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aiment.” The throne in the center of this group is the judgment seat of the presiding

있지만,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자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네바돈**의 온전한 주권자로서 고양된 직후인, 1,900년 전에야 자리 잡게 됐다. 이 24조연자는 **예루셈**에 있는 그의 개인 대리인이며, **사타니아** 출석점호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그 체계 가운데 고립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상승 개요의 다른 많은 국면에서, **오뎀 아들**을 대변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특별한 요청과 **미가엘**의 색다른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리인이다.

이 24조연자는 **유란시아**의 여덟 인종에서 모집됐으며, 이 집단 가운데 마지막은 1,900년 전에 **미가엘**의 부활 출석점호 때 소집됐다. 이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1. **오나가**, “호흡 수여자”에 대한 경배에서 동료들을 지휘했던, **행성 왕자** 이전 시대의 지도자.

2. **맨산트**, “위대한 빛”을 공경하도록 동료들을 자극했던, **유란시아**에서 **행성 왕자** 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

3. **오나모나론톤**, 홍인종의 먼 옛날 지도자요, 여러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위대한 영”을 공경하도록 자기 인종을 지도했던 자.

4. **올란도프**, 청색인 가운데 한 왕자였으며, “최고 우두머리”의 신성을 깨닫도록 한, 그들의 지도자.

5. **포르순타**, 멸절된 주황인종의 예언자였고, “위대한 선생”을 숭배하도록 이끈 이 민족의 지도자.

6. **싱글랑톤**, 많은 것 대신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도록 자기 민족을 가르치고 인도한 황색인 가운데 첫째. 황색인은 유일한 **하나님**을 수천 년 전에 알았다.

7. **환타드**, 녹색인을 어둠에서 구해낸 사람이며,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이끈 지도자.

8. **오르보논**, 남색인종을 개화시킨 사람이며, 한때 “하나님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끈, 그들의 지도자.

9. **아담**,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격화됐지만 생존했고, 나중에는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위치로 상승된, **하나님의 물질 아들**인, 불신임 받았지만 다시 복귀된, **유란시아**의 행성 아버지.

10. **이브**,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인데, 자기 배우자와 함께 태만에 대한 벌을 받

archangel, the throne of the resurrection roll call of mercy and justice for all Satania. This judgment seat has always been on Jerusem, but the twenty-four surrounding seats were placed in position no more than nineteen hundred years ago, soon after Christ Michael was elevated to the full sovereignty of Nebadon. Thes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re his personal agents on Jerusem, and they have authority to represent the Master Son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 roll calls of Satania and in many other phases of the scheme of mortal ascension on the isolated worlds of the system. They are the designated agents for executing the special requests of Gabriel and the unusual mandates of Michael.

45:4.2 (513.5) These twenty-four counselors have been recruited from the eight Urantia races, and the last of this group were assembled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roll call of Michael,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is Urantia advisory council is made up of the following members:

45:4.3 (513.6) 1. *Onagar*, the master mind of the pre-Planetary Prince age, who directed his fellows in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45:4.4 (513.7) 2. *Masant*, the great teacher of the post-Planetary Prince age on Urantia, who pointed his fellows to the veneration of “The Great Light.”

45:4.5 (513.8) 3. *Onamonalonton*, a far-distant leader of the red man and the one who directed this race from the worship of many gods to the veneration of “The Great Spirit.”

45:4.6 (513.9) 4. *Orlandof*, a prince of the blue men and their leader in the recognition of the divinity of “The Supreme Chief.”

45:4.7 (513.10) 5. *Porshunta*, the oracle of the extinct orange race and the leader of this people in the worship of “The Great Teacher.”

45:4.8 (513.11) 6. *Singlangton*, the first of the yellow men to teach and lead his people in the worship of “One Truth” instead of many. Thousands of years ago the yellow man knew of the one God.

45:4.9 (513.12) 7. *Fantad*, the deliverer of the green men from darkness and their leader in the worship of “The One Source of Life.”

45:4.10 (513.13) 8. *Orvonon*, the enlightener of the indigo races and their leader in the onetime service of “The God of Gods.”

45:4.11 (514.1) 9. *Adam*, the discredited but rehabilitated planetary father of Urantia, a Material Son of God who was relegated to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who survived and was subsequently elevated to this position by the decree of Michael.

45:4.12 (514.2) 10. *Eve*, the mother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who suffered the penalty of default with

있고 그와 함께 다시 회복되어, 이 집단의 생존하는 필사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배정됐다.

11. **에녹**, 육신 속에서 필사자 생애를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사고 조율사**와 융합된, **유란시아**의 필사자.

12. **모세**, 사라진 보라색 인종 중에서 남은 자를 해방시킨 자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숭배를 회복시키려고 선동했던 자.

13. **엘리아**, 물질 **아들** 이후 시대에, 빛나는 영적 업적을 이루다가 옮겨진 혼.

14. **마키벤타 멜기세덱**, 이 계층 중에서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한 유일한 **아들**. 그는 아직 **멜기세덱**으로 계승되는 한편, “영구히 **지고자**들의 사역자”가 됐는데, 필사 상승자로서 봉사하는 임무를 영원히 맡았으며,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에서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머물렀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셈**에 본부를 두고, **미가엘** 대신 활동하는 권세를 가진,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로 근래에 선포됐는데, **미가엘**은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체험했던, 그 세계의 **행성 왕자**다. 이럼에도, 잇따라 주둔하는 총독들, 즉 24총고자 구성원들이 **유란시아**를 여전히 감독하고 있다.

15. **세례 요한**,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사명의 선구자이고,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의 먼 친척이었다.

16. 1_2_3 **첫째, 캘리개스차** 배반이 있던 당시에 **가브리엘**이 봉사하는 데 동참한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의 지도자인데, **미가엘**이 무조건적 주권을 갖게 된 후에, **미가엘**이 그를 곧 이 위치로 상승시켰다.

선택받은 이 인격체들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한동안 상승 체제에서 제외됐으며, 이 수용력을 갖고 얼마나 더 근무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17, 18, 19, 20_번 자리는 영구 회원으로 차지되지 않는다. 그 자리들은 영구 회원 16명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서 임시로 채워지는데, **유란시아**에서 현재 증여 **아들** 이후 시대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나중에 배정하도록 열려 있다.

21, 22, 23, 24_번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채워지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시대를 뒤따를 다른 후세의 위대한 선생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 신성한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할 수 있고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집정관 아들**들과 **교사 아들**들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유란시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er mate and was also rehabilitated with him and assigned to serve with this group of mortal survivors.

45:4.13 (514.3) 11. *Enoch*, the first of the mortals of Urantia to fuse with the Thought Adjuster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45:4.14 (514.4) 12. *Moses*, the emancipator of a remnant of the submerged violet race and the instigator of the revival of the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under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45:4.15 (514.5) 13. *Elijah*, a translated soul of brilliant spiritual achievement during the post-Material Son age.

45:4.16 (514.6) 14. *Machiventa Melchizedek*, the only Son of this order to bestow himself upon the Urantia races. While still numbered as a Melchizedek, he has become “forever a minister of the Most Highs,” eternally assuming the assignment of service as a mortal ascender, having sojourned on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t Salem in the days of Abraham. This Melchizedek has latterly been proclaimed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th headquarters on Jerusem and authority to act in behalf of Michael, who is actually the Planetary Prince of the world whereon he experienced his terminal bestowal in human form. Notwithstanding this, Urantia is still supervised by successive resident governors general, members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45:4.17 (514.7) 15. *John the Baptist*, the forerunner of Michael's mission on Urantia and, in the flesh, distant cousin of the Son of Man.

45:4.18 (514.8) 16. 1-2-3 *the First*, the leader of the loyal midway creatures in the service of Gabriel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betrayal, elevated to this position by Michael soon after his entrance upon unconditioned sovereignty.

45:4.19 (514.9) These selected personalities are exempt from the ascension regime for the time being, on Gabriel's request, and we have no idea how long they may serve in this capacity.

45:4.20 (514.10) Seats numbers 17, 18, 19, and 20 are not permanently occupied. They are temporarily filled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ixteen permanent members, being kept open for later assignment to ascending mortals from the present postbestowal Son age on Urantia.

45:4.21 (514.11) Numbers 21, 22, 23, and 24 are likewise temporarily filled while being held in reserve for the great teachers of other and subsequent ages which undoubtedly will follow the present age. Eras of the Magisterial Sons and Teacher Sons and the ages of light and life are to be anticipated on Urantia, regardless of

unexpected visitations of divine Sons which may or may not occur.

5. 물질 아들

다양한 계층의 **아들**, 고위{高位}의 영, 최고천사, 천사, 및 중도 피조물을 포함해서, 천상의 생명체 중에서 큰 부서들은 **예루셈**에 그들의 본부와 거대한 보호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훌륭한 이 구역의 중앙에 있는 거주지는 **물질 아들**들의 주요 성전이다.

아담들의 영토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모든 이에게 매력적인 중심지다. 그것은 1,000개의 중심지로 구성되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물질 아들**과 **딸**들의 각 가족은, 우주의 진화 세계에서 근무하기 위해 가족의 구성원이 출발할 때까지, 또는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가족의 소유지에서 산다.

이 **물질 아들**들은, 진화하는 우주의 훈련 구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교{性交}로_번식하는 존재들 중에서 최고 유형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물질적이며; 심지어 **행성 아담**과 **이브**도 인간 거주 세계의 필사자 인종에게 분명히 보인다. 이 **물질 아들**들은, 위로는 신성과 완전성으로부터 아래로는 인간성 및 물질 실존에 이르기까지, 인격체들의 사슬에서 마지막이자 육체적인 고리다. 이 **아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 왕자**와 그 영역의 물질 피조물 사이에 상호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인간거주 세계에 제공한다.

살빙톤에서 1,000년만의 등록이 최근에 있었을 때, **네바돈**에는 시민 신분을 가진 **물질 아들**과 **딸**이 지역 체계 수도들에 161,432,840명 있다고 기록됐다. **물질 아들**의 숫자는 체계마다 다르며, 그 숫자는 자연스런 번식으로 계속 증가한다. 자식을 낳는 기능을 발휘할 때, 그들은 접촉하는 인격체들의 개인 욕구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않으며, 또한 비교적 높은 통치 기관 및 자문 협의회의 지도를 따르기도 한다.

이 **물질 아들**과 **딸**들은 **예루셈** 및 관련된 여러 세계에서 영구 주민이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수도{首都} 구체의 지역을 관리하는 일에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중도자 및 상승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일상 직무를 실제로 경영한다.

자식을 낳는 이 **아들**들은, **멜기세덱**의 방법에 따라 **예루셈**에서 자체_정부라는 이상{理想}을 실험하도록 허락 받았으며, 매우 높은 유형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아들신분의 상류 계층들은 그 영역의 거부권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예루셈 아담 족속**은 보통 선거권과 대

5. THE MATERIAL SONS

45:5.1 (514.12) The great divisions of celestial life have their headquarters and immense preserves on Jerusalem, including the various orders of divine Sons, high spirits, superangels, angels, and midway creatures. The central abode of this wonderful sector is the chief temple of the Material Sons.

45:5.2 (515.1) The domain of the Adams is the center of attraction to all new arrivals on Jerusalem. It is an enormous area consisting of one thousand centers, although each family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lives on an estate of its own up to the time of the departure of its members for service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or until their embarkation upon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45:5.3 (515.2) These Material Sons are the highest type of sex-reproducing beings to be found on the training sphe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And they are really material; even the Planetary Adams and Eves are plainly visible to the mortal races of the inhabited worlds. These Material Sons are the last and physical link in the chain of personalities extending from divinity and perfection above down to humanity and material existence below. These Sons provide the inhabited worlds with a mutually contactable intermediary between the invisibl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s.

45:5.4 (515.3) At the last millennial registration on Salvington there were of record in Nebadon 161,432,840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hip status on the local system capitals. The number of Material Sons varies in the different systems, and their number is being constantly increased by natural reproduction. In the exercise of their reproductive functions they are not guided wholly by the personal desires of the contacting personalities but also by the higher governing bodies and advisory councils.

45:5.5 (515.4) Thes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the permanent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its associated worlds. They occupy vast estates on Jerusalem and participate liberally in the local management of the capital sphere, administering practically all routine affairs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dways and the ascenders.

45:5.6 (515.5) On Jerusalem these reproducing Sons are permitted to experiment with the ideals of self-government after the manner of the Melchizedeks, and they are achieving a very high type of society. The higher orders of sonship reserve the veto functions of the realm, but in nearly every respect the Jerusalem Adamites govern themselves by

의{代議} 정부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통치한다. 언젠가는 그들이 실제로 완성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질 아들들이 베푸는 봉사의 특성은 주로 그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들이 **살빙톤의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곧 대개 특정한 행성에 제한돼 있고 물질적이지만--그럼에도 **멜기세덱**들은 비교적 어린 세대의 **물질 아들**들을 훈육하기 위해, 각 체계 본부에서 선생들로 구성된 강력한 교수진을 유지한다. 이 어린 **물질 아들**들과 **딸**들의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및 영적 훈련 체계는, 범위, 기법, 및 실용성에서 최고의 완전성에 해당한다.

universal suffrage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Sometime they hope to be granted virtually complete autonomy.

45:5.7 (515.6) The character of the service of the Material Sons is largely determined by their ages. While they are not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Melchizedek University of Salvington — being material and ordinarily limited to certain planets — nevertheless, the Melchizedeks maintain strong faculties of teacher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ystem for the instru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of Material Sons. The educational and spiritual training systems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younger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the acme of perfection in scope, technique, and practicability.

6. 아담의 상승자 훈련

물질 아들과 **딸**들은, 그 자녀와 함께,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광경을 보여준다. 그들은 남녀 구별이 있는 바로 너희 물질 인종과 무척 흡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에 잠기게 하고 우에 있는 접촉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는 여러 공통된 흥미거리를 발견한다.

필사 생존자들은 체계 수도에서, 이 우세한 약간육체적이고 남녀로 구성되는 피조물의 생활 습관과 행위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자유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내는데, 이는 필사 생존자들이 본부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을 때부터 **에덴시아**를 향해 떠날 때까지, 이 **예루셈** 시민이 그들의 직접 후원자요 스승이기 때문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자신이 기원된 세상에서 고난당했던 어떤 체험상 결핍을 겪었더라도, 유전성이든지, 환경이든지, 또는 육체 속의 생애 중에 불행하게 조기{早期}에 사망했든지 상관없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일곱 맨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필사자의 성 생활과 그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사실 그대로다. 수많은 필사자는, 자신이 출생된 구체{球體}에서 가졌던 그런대로 평범한 성 관계에서 유래되는 훈육으로부터 각별한 유익을 얻지 못한 상태로 맨션 세계에 도착한다. 맨션 세계에서 겪는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회를 거의 제공할 수 없다.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남녀 체험은 이 상승자들에게 끝났지만, **물질 아들** 및 **딸**들과의 긴밀한 연합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적으로_불완전한 이 필사자들은, 결핍된 사회적, 지성적, 감정적, 및 영적 국면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 또는 나쁜 재앙 때문에 진화 세계에서 유익한 남녀관계의 혜택을 박탈당한 그 인간들은 모두, 체계 수도에 있는 영구 거주자인, 숭고한 **아담**이라는 성 피조물과 긴밀하고 사랑스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기본적인 필사자 체험을

6. ADAMIC TRAINING OF ASCENDERS

45:6.1 (515.7)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present an engaging spectacle which never fails to arouse the curiosity and intrigue the attention of all ascending mortals. They are so similar to your own material sex races that you both find much of common interest to engage your thoughts and occupy your seasons of fraternal contact.

45:6.2 (515.8) Mortal survivors spend much of their leisure on the system capital observing and studying the life habits and conduct of these superior semiphysical sex creatures, for these citizens of Jerusem are the immediate sponsors and mentors of the mortal survivors from the time they attain citizenship on the headquarters world until they take leave for Edentia.

45:6.3 (516.1) On the seven mansion worlds ascending mortals are afforded ample opportunities for compensating any and all experiential deprivations suffered on their worlds of origin, whether due to inheritance, environment, or unfortunat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career in the flesh. This is in every sense true except in the mortal sex life and its attendant adjustments. Thousands of mortals reach the mansion worlds without having benefited particularly from the disciplines derived from fairly average sex relations on their native spheres. The mansion world experience can provide little opportunity for compensating these very personal deprivations. Sex experience in a physical sense is past for these ascenders, but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both individually and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se sex-deficient mortals are enabled to compensate the social,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aspects of their deficiency. Thus are all those humans whom circumstances or bad judgment deprived of the benefits of advantageous sex association on the

획득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체계 수도에서 제공받는다.

어떤 생존하는 필사자, 중도자, 또는 스라빔이든지, 세상에서 진화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관계를 성취하는 고귀한 체험, 또는 그와 비슷하고 동등한 다른 체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낙원**으로 상승할 수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며,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우주 자녀에 관한 핵심 개념에 근본이다. 따라서, 그런 체험은 어떤 상승자의 체험적 훈련에도 빼놓을 수 없게 된다.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 및 진화하는 스라빔은, 체계 본부의 **물질 아들** 및 **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모로서의 이 체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은 그런 상승자는, **예루셈의 아담**과 **이브**들이 자손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부모로서의 체험을 획득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부모관계를 체험하지 않은 모든 필사 생존자는, **예루셈의 물질 아들**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뛰어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동역자로서 필수적인 이 훈련 역시 획득해야 한다. **예루셈**의 첫째 과도기 문화 세계에 있는 체계 육아원(育兒院)에서 그런 필사자가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참말이다.

완결성취자들의 세계에 있는 어떤 모론시아 인격체들이, **사타니아**의 이 보호관찰 육아원을 유지하며, 그 행성의 절반은 자녀를 기르는 이 일에 전념한다. 개인으로서 영적 신분을 획득하기 전에 진화 세상에서 죽은 자손들처럼, 생존하는 필사자의 어떤 자녀들이 여기에 받아들여지고 재조립된다. 친 부모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상승하면, 그 영역의 그런 필사자 자녀는, 체계 완결성취자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 되도록 보장받고, 거기서 나중에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필사자로서 상승하는 부모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남녀 구별이 없는 것 외에는, 여기서 자녀들은 태어난 세계에서 가졌던 모습과 똑같이 출현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생활하는 체험을 겪은 후에는, 필사자 종족처럼 자식을 낳는 일은 전혀 없다.

완결성취자들의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육아원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필수적인 부모로서의 체험이 부족한 맨션 세계 학생들은, 여러 맨션 세계에서 상승 임무로부터 완결성취자 세계로 잠시 이동하도록 **멜기세덱**에게 허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자녀 및 다른

evolutionary worlds, here on the system capitals afforded full opportunity to acquire these essential mortal experiences in close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supernal Adamic sex creatures of permanent residence on the system capitals.

45:6.4 (516.2) No surviving mortal, midwayer, or seraphim may ascend to Paradise, attain the Father, and b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without having passed through that sublime experience of achieving parental relationship to an evolving child of the worlds or some other experience analogous and equivalent thereto. The relationship of child and parent is fundamental to the essentia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universe children. Therefore does such an experience become indispensable to the experiential training of all ascenders.

45:6.5 (516.3) The ascending midway creatures and the evolutionary seraphim must pass through this parenthood experience in association with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us do such nonreproducing ascenders obtain the experience of parenthood by assisting the Jerusem Adams and Eves in rearing and training their progeny.

45:6.6 (516.4) All mortal survivors who have not experienced parenthood on the evolutionary worlds must also obtain this necessary training while sojourning in the homes of the Jerusem Material Sons and as parental associates of these superb fathers and mothers. This is true except in so far as such mortals have been able to compensate their deficiencies on the system nursery located on the first transitional-culture world of Jerusem.

45:6.7 (516.5) This probation nursery of Satania is maintained by certain morontia personalities on the finaliters' world, one half of the planet being devoted to this work of child rearing. Here are received and reassembled certain children of surviving mortals, such as those offspring who perish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before acquiring spiritual status as individuals. The ascension of either of its natural parents insures that such a mortal child of the realms will be accorded repersonalization on the system finaliter planet and there be permitted to demonstrate by subsequent freewill choice whether or not it elects to follow the parental path of mortal ascension. Children here appear as on the nativity world except for the absence of sex differentiation. There is no reproduction of mortal kind after the life experience on the inhabited worlds.

45:6.8 (517.1) Mansion world students who have one or more children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s' world, and who are deficient in essential parental experience, may apply for a Melchizedek permit which will effect their temporary transfer from ascension duties on the mansion worlds to

자녀에게 보조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부여된다. 부모로서 보살피는 이 봉사는, 그런 상승자들이 **물질 아들**과 **딸**들의 가족 안에서 겪도록 요구되는 훈련의 절반을 마친 것으로, **예루셈**에서 나중에 인정받게 될 것이다.

보호관찰 육아원 자체는 1,000쌍의 **물질 아들**과 **딸**의 감독을 받는데, 이들은 자기 계층의 **예루셈** 거주지에서 온 자원자다. 대체로 동일한 숫자의 부모로서 자원하는 중간유한절대자 집단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며, 이 부모들은 **사타니아**의 중간유한절대 세계로부터,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구체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여러 특별 보호 세계들에서 지내는, 계시되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도중에,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멈춘다.

7. 멜기세덱 학교

멜기세덱들은, 그 큰 교관{敎官} 단체--곧 부분적으로 영성화 된, 의지를 지닌 피조물 및 기타 존재들--의 지휘관인데, 이 교관들은 **예루셈** 및 거기 관련된 세계들에서, 그러나 특히 일곱 맨션 세계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동한다. 이 세계들은 일시적으로 붙들어두는 행성인데,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내주하는 **조율사**와 융합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달성을 위한 수고, 즉 죽음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끝난 바로 그 수고를 계속하는 연장된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일시적 형태로 복구되는 곳이다. 또는 유전적 장애나 불리한 환경이나 환경의 상황 때문에 이 혼의 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목적이 참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자는 누구나, 자신으로서, 연속으로 여러 행성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들은 거기서 영원한 생애의 기본을 통달하기, 즉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획득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던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배워야 한다.

찬란한 저녁별들(그리고 지명되지 않은 협조자들)은 **멜기세덱**들이 후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우주의 다양한 교육 사업에서 자주 선생으로서 근무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또한 그렇게 협력하며, 진보하는 훈련을 받는 이 학교들에서, **낙원** 완전성에 속하는 숨씨를 나눠준다. 그러나 이 활동 전체가, 오로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향상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는 **네바돈**의 토착 영인격체들의 점진적 훈련에도 똑같이 몰두한다.

멜기세덱 아들들은, **예루셈**에 있는 서로 다른 30개 이상의 교육 중심지를 인도한다. 이 훈련 학교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학부로부터 시작하고,

the finaliter world, where they are granted opportunity to function as associate parents to their own and other children. This service of parental ministry may be later accredited on Jerusem as the fulfillment of one half of the training which such ascenders are required to undergo in the familie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45:6.9 (517.2) The probation nursery itself is supervised by one thousand couple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volunteers from the Jerusem colony of their order. They are immediately assisted by about an equal number of volunteer midsonite parental groups who stop off here to render this service on their way from the midsonite world of Satania to the unrevealed destiny on their special worlds of reservation among the finaliter spheres of Salvington.

7. THE MELCHIZEDEK SCHOOLS

45:7.1 (517.3) The Melchizedeks are the directors of that large corps of instructors — partially spiritualized will creatures and others — who function so acceptably on Jerusem and its associated worlds but especially on the seven mansion worlds. These are the detention planets, where those mortals who fail to achieve fusion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re rehabilitated in transient form to receive further help and to enjoy extended opportunity for continuing their strivings for spiritual attainment, those very efforts which were prematurely interrupted by death. Or if, for any other reason of hereditary handicap, unfavorable environment, or conspiracy of circumstances, this soul attainment was not completed, no matter what the reason, all who are true of purpose and worthy in spirit find themselves, as themselves, present on the continuing planets, where they must learn to master the essentials of the eternal career, to possess themselves of traits which they could not, or did not, acquire during the lifetime in the flesh.

45:7.2 (517.4)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nd their unnamed co-ordinates) frequently serve as teachers in the various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universe, including those sponsored by the Melchizedeks. Also do the Trinity Teacher Sons collaborate, and they impart the touches of Paradise perfection to these progressive training schools. But all these activities are not exclusively devoted to the advancement of ascending mortals; many are equally occupied with the progressive training of the native spirit personalities of Nebadon.

45:7.3 (517.5) The Melchizedek Sons conduct upward of thirty different educational centers on Jerusem. These training schools begin with the college of self-evaluation and end with the schools

예루셈 시민 학교로 끝나는데, 거기서 **물질 아들**과 **딸**들은 필사 생존자들에게 대의 정부의 고귀한 의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최대한 애쓰면서, **멜기세덱** 및 다른 존재들과 연합한다. 전체 우주는 **전형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직되고 경영된다. 대의 정부는, 완전치 않은 존재들 가운데서 신성하게 이상적인 자체_정부다.

각 체계는 우주 시간으로 100년마다 성과 입법부에 참여할 열 명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들은 1,000명으로 구성된 **예루셈** 협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이 의회는 이양되거나 지정된 그런 모든 문제에서 체계 집단을 대표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선출되는 기관이다. 모든 대표자 또는 기타 대의원은, 1,000명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선출되는데, 1,000명의 이 선거인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자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경영 학부**라는 가장 높은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학교는 **멜기세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최근에는 완결성취자들이 돕고 있다.

예루셈에는 선출되는 기관이 많이 있으며, 이 여러 기관에게 권한을 주려고 때때로 시민권을 가진 세 계층--곧 **물질 아들**과 **딸**, 중도 피조물을 포함하여 스라빔과 그 동역자,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투표한다. 대표하는 영예를 얻은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 후보자는 **멜기세덱** 경영 학교들로부터 필수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루셈에서는 이 세 집단의 시민 가운데 보통 선거권이 있지만, 인정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모타--곧 모론시아 지혜--를 몸소 소유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투표한다. 어떤 한 인격체가 **예루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숫자는, 하나부터 1,000개에 이른다. **예루셈** 시민은 모타 성취도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때때로 **예루셈** 시민은 심사하는 **멜기세덱**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모론시아 지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 **멜기세덱**들이 증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험하는 단체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은 영 통찰력을 얻은 정도를 확인해 준다. 그 다음에 그들은 24조언자 및 그 동역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시민들이 체험으로 사회화를 달성한 상태에 대하여 승인해 준다. 그 다음에 이 세 요소는 대의 정부의 시민권 등록담당관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모타 상태를 재빨리 계산하고 그에 따라 투표권 숫자를 인가한다.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 상승하는 필사자, 특히 새로운 모론시아 수준에서 인격 통합을 더디게 이룩한 자는, **물질 아들**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런 부족함을 시정하도록 고안된 집중 훈련을 받

of Jerusalem citizenship, wherein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join with the Melchizedeks and others in their supreme effort to qualify the mortal survivors for the assumption of the high responsibiliti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entire universe is organized and administered on the representative plan.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the divine ideal of self-government among nonperfect beings.

45.7.4 (517.6) Every one hundred years of universe time each system selects its ten representatives to sit in the constellation legislature. They are chosen by the Jerusalem council of one thousand, an elective body charged with the duty of representing the system groups in all such delegated or appointive matters. All representatives or other delegates are selected by the council of one thousand electors, and they must be graduates of the highest school of the Melchizedek College of Administration, as also are all of those who constitute this group of one thousand electors. This school is fostered by the Melchizedeks, latterly assisted by the finaliters.

45.7.5 (518.1) There are many elective bodies on Jerusalem, and they are voted into authority from time to time by three orders of citizenship —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including midway creatures, and the ascending mortals. To receive nomination for representative honor a candidate must have gained requisite recognition from the Melchizedek schools of administration.

45.7.6 (518.2) Suffrage is universal on Jerusalem among these three groups of citizenship, but the vote is differentially cast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and duly registered personal possession of mota — morontia wisdom. The vote cast at a Jerusalem election by any one personality has a value ranging from one up to one thousand. Jerusalem citizens are thu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mota achievement.

45.7.7 (518.3) From time to time Jerusalem citizens present themselves to the Melchizedek examiners, who certify to their attainment of morontia wisdom. Then they go before the examining corp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r their designates, who ascertain the degree of spirit insight. Next they appear in the presence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nd their associates, who pass upon their status of experiential attainment of socialization. These three factors are then carried to the citizenship registrar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who quickly compute the mota status and assign suffrage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therewith.

45.7.8 (518.4)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 ascending mortals, especially those who are tardy in their personality unification on the new morontia levels, are taken in hand by

는다. 모타 인격을 성취했음을 이 **물질 아들**들이 보증해주기 전에는,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도, 체계 본부를 떠나 성좌로 가서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교체하는 생애를 시작하지 못하는데—이 모타 인격은, 체험적으로 교체하면서 싹트기 시작하는 모론시아 생애와, 완성된 필사자 실존을 결합하는 개체성이며, 이 두 가지는 **사고 조율사**의 영적 전면통제에 따라서 알맞게 섞인다.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the Material Sons and are given intensive training designed to rectify such deficiencies. No ascending mortal leaves the system headquarters for the more extensive and varied socialization career of the constellation until these Material Sons certify to the achievement of mota personality — an individuality combining the completed mortal existence in experiential association with the budding morontia career, both being duly blended by the spiritual overcontrol of the Thought Adjuster.

45:7.9 (518.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temporary assignment on Urantia.]

제46편. 지역 체계 본부

⇨ 045

유란시아 책

047 ⇨

II 부. 지방우주

제46편
지역 체계 본부

섹션

소개

1.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2. 예루셈의 물리적 특색
3. 예루셈 방송
4. 거주지와 경영 지역
5. 예루셈 원형
6. 행정_경영 정사각형
7.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8. 예루셈 삼각형

소개

사타니아의 수도 **예루셈**은 한 지역 체계의 평범한 수도이며, **루시퍼**의 반역, 그리고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됨으로써 야기된 수많은 불규칙성을 제외하면, 유사한 구체들 가운데 전형적 상태다. 너희의 지역 체계는 어느 정도 험난한 체험을 거쳐 왔지만, 지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불협화음의 결과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뿌리가 뽑히고 있다. 질서와 선의{善意}가 회복되고 있으며, **예루셈**의 환경은 너희의 전승{傳承}에 나오는 천상의 상태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로 20세기 종교 신자 대부분이 상상하는 그 하늘나라가 체계 본부이기 때문이다.

1.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緯度} 구역과 10,000개의 경도{經度} 지대로 나뉘어 있다. 이 구체에는 7개의 주요 수도와 70개의 부속 행정 중심

PAPER 46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Aspects of Jerusem
2. Physical Features of Jerusem
3. The Jerusem Broadcasts
4.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5. The Jerusem Circles
6. The Executive-Administrative Squares
7. The Rectangles — The Spornagia
8. The Jerusem Triangles

INTRODUCTION

46:0.1 (519.1) JERUSEM, the headquarters of Satania, is an average capital of a local system, and aside from numerous irregularities occasioned by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it is typical of similar spheres. Your local system has passed through some stormy experiences, but it is at present being administered most efficiently, and as the ages pass, the results of disharmony are being slowly but surely eradicated. Order and good will are being restored, and the conditions on Jerusem are more and more approaching the heavenly status of your traditions, for the system headquarters is truly the heaven visualized by the majority of twentieth-century religious believers.

1. PHYSICAL ASPECTS OF JERUSEM

46:1.1 (519.2) Jerusem is divided into one thousand latitudinal sectors and ten thousand longitudinal zones. The sphere has seven major capitals and

지가 있다. 7개의 구역 본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돼 있으며, **체계 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각 본부를 방문한다.

예루셈의 표준 거리 1마일은 **유란시아**에서 약 7마일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래던트”는, 성숙한 궁극체로부터 10진 체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너희의 무게 단위로 10온스와 거의 똑같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3일과 같은데, **예루셈**을 축으로 한 번 회전하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로 이뤄진다. 으뜸 크로놀덱들이 체계의 시간을 방송한다.

예루셈의 에너지는 훌륭하게 통제되고 지대 경로를 따라서 구체 둘레를 회전하는데, 이 경로는 우주의 에너지 축적량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노련하게 경영한다. 이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전도(傳導) 경로들을 통과하는 데 대한 자연 저항이, **예루셈**의 한결같은 온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열을 방출한다. 빛이 충만할 때 온도는 화씨로 약 70도를 유지하는 한편, 빛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50도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진다.

예루셈의 채광(採光) 체계는 너희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덥고 추운 계절도 없다. 동력 변형자들이 10만 개의 중심지를 유지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심원한 에너지가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구체의 전기를 먼 대기_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 대기를 통해서 위로 투사되며;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태양이 아침 10시경에 위에서 비출 때, **유란시아** 태양광의 강도와 비슷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우며 평온한 빛으로 반사돼서 내려온다.

그런 채광 조건 하에서, 광선은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마치, 온 공간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발산되면서 하늘에 뿌려지는 것 같다. 이 빛은, 매우 적은 열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외하면, 자연 항성광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너희는, 그런 본부 세계들이 공간 속에서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며;**예루셈**이 **유란시아**에 매우 근접해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루셈 윗쪽 전리층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빛_에너지를 반사하는 기체는, 너희가 소위 북극광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현상과 관련되는, **유란시아**의 상부 대기층에 있는 기체와 매우 흡사하지만, 이 북극광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유란시아**에서 지상 방송 파장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기체 보호막인데, 파장이 똑바로 밖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이 기체층에 부딪치게 되면 다시 지구 쪽으로 반사된다. 이런

seventy minor administrative centers. The seven sectional capitals are concerned with diverse activities, and the System Sovereign is present in each at least once a year.

46:1.2 (519.3) The standard mile of Jerusem is equivalent to about seven Urantia miles. The standard weight, the “gradant,” is built up through the decimal system from the mature ultimatons and represents almost exactly ten ounces of your weight. The Satania day equals three days of Urantia time, less one hour, four minutes, and fifteen seconds, that being the time of the axial revolution of Jerusem. The system year consists of one hundred Jerusem days. The time of the system is broadcast by the master chronoldeks.

46:1.3 (519.4) The energy of Jerusem is superbly controlled and circulates about the sphere in the zone channels, which are directly fed from the energy charges of space and expertly administered by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natural resistance to the passage of these energies through the physical channels of conduction yields the heat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the equable temperature of Jerusem. The full-light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about 70 degrees Fahrenheit, while during the period of light recession it falls to a little lower than 50 degrees.

46:1.4 (519.5) The lighting system of Jerusem should not be so difficult for you to comprehend. There are no days and nights, no seasons of heat and cold. The power transformers maintain one hundred thousand centers from which rarefied energies are projected upward through the planetary atmosphere, undergoing certain changes, until they reach the electric air-ceiling of the sphere; and then these energies are reflected back and down as a gentle, sifting, and even light of about the intensity of Urantia sunlight when the sun is shining overhead at ten o'clock in the morning.

46:1.5 (520.1) Under such conditions of lighting, the light rays do not seem to come from one place; they just sift out of the sky, emanating equally from all space directions. This light is very similar to natural sunlight except that it contains very much less heat. Thus it will be recognized that such headquarters worlds are not luminous in space; if Jerusem were very near Urantia, it would not be visible.

46:1.6 (520.2) The gases which reflect this light-energy from the Jerusem upper ionosphere back to the ground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Urantia upper air bel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auroral phenomena of your so-called northern lights, although these are produced by different causes. On Urantia it is this same gas shield which prevents the escape of the terrestrial broadcast waves, reflecting them earthward when they strike this gas belt in their direct outward

방법으로, 그것이 너희 세계를 둘러싼 공기를 통과하면서 표면 가까이에 방송이 이뤄지게 한다.

그 구체의 이런 채광은, **예루셈**의 하루 중에서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동안 균일하게 유지되며,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빛이 비칠 때, 즉 청명한 밤에 너희에게 보름달이 떴을 때의 빛처럼 될 때까지 점차 줄어든다. 이때는 **예루셈** 전체에서 고요한 시간이다. 휴식하고 회복하는 이 기간에 오직 방송_수신소들만 작동된다.

예루셈은 근처에 있는 여러 항성으로부터 -- 빛나는 별빛 같은--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지만, 이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예루셈** 같은 세계는 항성의 동요로 생기는 변화에 지배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어가거나 죽어가는 항성의 문제와도 상관 없다.

7개의 과도기 연구 세계와 그에 속한 49개 위성, **예루셈** 기법에 따라서 따뜻하게 유지되고, 빛을 받고, 에너지와 물을 공급받는다.

2. 예루셈의 물리적 특색

예루셈에 지진이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유란시아** 및 진화된 다른 세계에서 보는 울퉁불퉁한 산맥이 없어서 아쉽겠지만, 아름다운 고지대{高地帶} 그리고 독특하게 다양한 다른 지형과 경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들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며, 그런 지역의 풍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초월한다.

수많은 작은 호수가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강은 없고, 광대한 바다도 없다. 어떤 건축양식 세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이 감소됨으로써 온도가 가장 낮아질 때 습기가 응축되는 이슬 현상이 매일 발생된다. (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유란시아** 같은 두_기체 행성보다 세_기체 세계에서 더 높다.) 물리적인 식물 생명체 및 모론시아 세계 생명체, 둘 다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 습기는 그 구체 전역에, 심지어 고지대의 최고 높은 곳까지 뻗은, 하층토{下層土} 순환 체계를 통해서 주로 공급된다. 이 물 체계는 완전히 지하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 활기찬 **예루셈**의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수로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예루셈의 대기는 세_기체 혼합이다. 이 공기는 **유란시아**의 공기와 매우 흡사한데, 모론시아 생명 체제의 호흡에 적당한 어떤 기체가 추가돼 있다. 이 셋째 기체는, 물질 계층에 속하는 동물 또는 식물의 호흡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적당하다.

교통 체계는 에너지 운동의 순환류{循環流}와

flight. In this way broadcasts are held near the surface as they journey through the air around your world.

46:1.7 (520.3) This lighting of the sphere is uniformly maintained for seventy-five per cent of the Jerusem day, and then there is a gradual recession until, at the time of minimum illumination, the light is about that of your full moon on a clear night. This is the quiet hour for all Jerusem. Only the broadcast-receiving stations are in operation during this period of rest and rehabilitation.

46:1.8 (520.4) Jerusem receives faint light from several near-by suns — a sort of brilliant starlight — but it is not dependent on them; worlds like Jerusem are not subject to the vicissitudes of sun disturbances, neither are they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a cooling or dying sun.

46:1.9 (520.5) The seven transitional study worlds and their forty-nine satellites are heated, lighted, energized, and watered by the Jerusem technique.

2. PHYSICAL FEATURES OF JERUSEM

46:2.1 (520.6) On Jerusem you will miss the rugged mountain ranges of Urantia and other evolved worlds since there are neither earthquakes nor rainfalls, but you will enjoy the beauteous highlands and other unique variations of topography and landscape. Enormous areas of Jerusem are preserved in a “natural state,” and the grandeur of such districts is quite beyond the powers of human imagination.

46:2.2 (520.7)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mall lakes but no raging rivers nor expansive oceans. There is no rainfall, neither storms nor blizzards, on any of the architectural worlds, but there is the daily precipitation of the condensation of moisture during the time of lowest temperature attending the light recession. (The dew point is higher on a three-gas world than on a two-gas planet like Urantia.) The physical plant life and the morontia world of living things both require moisture, but this is largely supplied by the subsoil system of circulation which extends all over the sphere, even up to the very tops of the highlands. This water system is not entirely subsurface, for there are many canals interconnecting the sparkling lakes of Jerusem.

46:2.3 (520.8) The atmosphere of Jerusem is a three-gas mixture. This air is very similar to that of Urantia with the addition of a gas adapted to the respiration of the morontia order of life. This third gas in no way unfits the air for the respiration of animals or plants of the material orders.

46:2.4 (521.1) The transportation system is allied with

합쳐져 있는데, 이 주요 에너지 흐름들은 10마일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 기계장치를 조정함으로써, 그 행성의 물질 존재들은 시간당 200에서 500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용 새는 한 시간에 100마일 정도 날아갈 수 있다. **물질 아들**들의 비행장치는 시간당 약 500마일을 여행할 수 있다. 물질 존재 및 초기 모론시아 존재들은 반드시 이 기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지만, 영 인격체들은 우세한 세력, 그리고 에너지의 영 근원들과 연결함으로써 움직인다.

예루셈 및 그와 관련된 세계들은, **네바돈**의 건축양식 구체들의 특질인, 10개 표준 분야의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예루셈**에는 유기체 진화가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생명 형태가 없고, 실존을 위한 투쟁도 없으며, 적자생존도 없다. 오히려 중앙의 신성한 우주에 있는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 조화, 및 완전성을 예시하는 창조적 적응이 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완비된 이 모든 것에는, 천상의 기능공들과 그 동료들이 예술적으로 대조해 보여주는 물리적 생명과 모론시아 생명이 아주 놀랍게 혼합돼 있다.

예루셈은 정말로 천국 같은 영광과 장엄함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 애쓰더라도, 너희는 이 영화로운 건축양식 세계들에 대한 적당한 관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너희 세계에는 무엇이든지 비교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예루셈**의 물체들조차 **유란시아**의 것들을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다. 너희가 실제로 **예루셈**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하늘의 세계들에 대한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체계 수도에서 갖게 되는 체험을, 우주와 연방우주 그리고 더욱 먼 **하보나** 훈련 구체들에 너희가 언젠가 도착할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예루셈의 생산 구역, 즉 실험 구역은 광대한 영토인데, 연기 나는 굴뚝이 없으므로, **유란시아** 인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그럼에도 특별한 이 세계들과 관련된 복잡한 물질 경제활동이 있으며, 너희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화학자와 발명가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경이롭게 만들 만큼, 기계적 기법과 물리적 성취가 극치에 이르렀다. **낙원**으로 가는 여행에서 잠시 붙들어두는 이 첫 세계가, 영적이기보다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잠시 멈춰서 고려해 보자. **예루셈** 및 그것의 과도기 세계들에서 너희가 머무는 동안 내내, 너희는 진보하는 영 실존으로서 사는 너희의 후대 생애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뤄진 땅에서 보냈던 생애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스랍 산{山}이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데, 거의 15,000피트에 이르며, 모든 운송 스라빔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행성의 중력을 탈피하기 위해, 그리

the circulatory streams of energy movement, these main energy currents being located at ten-mile intervals. By adjustment of physical mechanisms the material beings of the planet can proceed at a pace varying from two to five hundred miles per hour. The transport birds fly at about one hundred miles an hour. The air mechanisms of the Material Sons travel around five hundred miles per hour. Material and early morontia beings must utilize these mechanical means of transport, but spirit personalities proceed by liaison with the superior forces and spirit sources of energy.

46:2.5 (521.2) Jerusalem and its associated worlds are endowed with the ten standard divisions of physical life characteristic of the architectural spheres of Nebadon. And since there is no organic evolution on Jerusalem, there are no conflicting forms of life, no struggle for existence, no survival of the fittest. Rather is there a creative adaptation which foreshadows the beauty, the harmony, and the perfection of the eternal worlds of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And in all this creative perfection there is the most amazing intermingling of physical and of morontia life, artistically contrasted by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ir fellows.

46:2.6 (521.3) Jerusalem is indeed a foretaste of paradisiacal glory and grandeur. But you can never hope to gain an adequate idea of these glorious architectural worlds by any attempted description. There is so little that can be compared with aught on your world, and even then the things of Jerusalem so transcend the things of Urantia that the comparison is almost grotesque. Until you actually arrive on Jerusalem, you can hardly entertain anything like a true concept of the heavenly worlds, but that is not so long a time in the future when your coming experience on the system capital is compared with your sometime arrival on the more remote training spheres of the universe, the superuniverse, and of Havona.

46:2.7 (521.4) The manufacturing or laboratory sector of Jerusalem is an extensive domain, one which Urantians would hardly recognize since it has no smoking chimneys; nevertheless, there is an intricate material economy associated with these special worlds, and there is a perfection of mechanical technique and physical achievement which would astonish and even awe your most experienced chemists and inventors. Pause to consider that this first world of detention in the Paradise journey is far more material than spiritual. Throughout your stay on Jerusalem and its transition worlds you are far nearer your earth life of material things than your later life of advancing spirit existence.

46:2.8 (521.5) Mount Seraph is the highest elevation on Jerusalem, almost fifteen thousand feet, and is the point of departure for all transport seraphim.

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에너지 공급에 수많은 기계 개발품이 활용된다. 스랍 운반체는 낮 시간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빛이 줄어드는 깊은 밤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출발한다. 운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초당 약 25 표준 마일로 출발하며, **예루셈**으로부터 2,000마일 이상 멀어질 때까지는 표준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운송체들은,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수정 같은 별판에 도착한다. 이 지역 주변에는 스랍 운송으로 우주를 통과하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를 영접하는 장소들이 있다. 연구하는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수정 같은 극 지점 가까이에서, 너희는 진주처럼 생긴 관측소로 올라갈 수 있으며, 본부 행성 전체의 거대한 부조{浮彫}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루셈 방송

연방우주 및 **낙원_하보나** 방송은, **살빙톤**과 연결하여, 극{極} 수정체, 즉 유리바다를 이용하는 어떤 기법으로 **예루셈**에서 수신된다. 이 **네바돈**의 _바깥쪽 통신을 수신하기 위한 설비 외에, 세 가지 다른 집단의 수신소가 있다. 분리돼 있지만 삼중궤도 집단에 속한 이수신소들은, 여러 지역 세계에서, 성좌 본부에서, 그리고 지방우주 수도에서 오는 방송을 수신하도록 조정돼 있다. 이 모든 방송은 중앙 방송 원형극장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존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상연되며, **예루셈**에서 상송하는 필사자가 몰두하는 모든 것 중에서, 끝없이 흐르는 우주 공간 보고서를 듣는 것보다 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열중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 **예루셈** 방송_수취소는 하나의 거대한 원형극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극장은 **유란시아**에 대개 알려지지 않은 번쩍거리는 물질로 건축됐고, 수많은 영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외에, 50억 이상의 --물질 및 모론시아-- 존재를 앉힐 수 있다. 그 방송국에서 우주의 복지와 상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가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은, 온 **예루셈**이 매우 좋아하는 오락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지체되지 않는 유일한 행성 활동이다.

방송을_수신하는 이 원형극장에, **살빙톤**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가까운 곳에서, **지고자인 성좌 아버지**들의 **에덴시아** 연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수신된다. **우버사**의 보통 방송과 특별 방송이 **살빙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달되며, **낙원**의 메시지가 수신될 때에는, 주민 전체가 유리바다 주변에 모이고, **우버사** 친구들이 **낙원**의 방송 기법에 반사성 현상을 첨가하기 때문에, 귀

Numerous mechanical developments are used in providing initial energy for escaping the planetary gravity and overcoming the air resistance. A seraphic transport departs every three seconds of Urantia time throughout the light period and, sometimes, far into the recession. The transporters take off at about twenty-five standard miles per second of Urantia time and do not attain standard velocity until they are over two thousand miles away from Jerusalem.

46:2.9 (521.6) Transports arrive on the crystal field, the so-called sea of glass. Around this area are the receiving stations for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who traverse space by seraphic transport. Near the polar crystal receiving station for student visitors you may ascend the pearly observatory and view the immense relief map of the entire headquarters planet.

3. THE JERUSEM BROADCASTS

46:3.1 (522.1) The superuniverse and Paradise-Havona broadcasts are received on Jerusalem in liaison with Salvington and by a technique involving the polar crystal, the sea of glass. In addition to provisions for the reception of these extra-Nebadon communications, there are three distinct groups of receiving stations. These separate but tricircular groups of stations are adjusted to the reception of broadcasts from the local worlds, from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from the capital of the local universe. All these broadcasts are automatically displayed so as to be discernible by all types of beings present in the central broadcast amphitheater; of all preoccupations for an ascendant mortal on Jerusalem, none is more engaging and engrossing than that of listening in on the never-ending stream of universe space reports.

46:3.2 (522.2) This Jerusalem broadcast-receiving station is encircled by an enormous amphitheater, constructed of scintillating materials largely unknown on Urantia and seating over five billion beings — material and morontia — besides accommodating innumerable spirit personalities. It is the favorite diversion for all Jerusalem to spend their leisure at the broadcast station, there to learn of the welfare and state of the universe. And this is the only planetary activity which is not slowed down during the recession of light.

46:3.3 (522.3) At this broadcast-receiving amphitheater the Salvington messages are coming in continuously. Near by, the Edentia word of the Most High Constellation Fathers is received at least once a day. Periodically the regular and special broadcasts of Uversa are relayed through Salvington, and when Paradise messages are in reception, the entire population is assembled around the sea of glass, and the Uversa friends

로 듣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향상되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계속해서 미리 맛볼 기회가 필사 생존자들에게 주어진다.

예루셈 송신소는 그 구체의 반대 극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개별 세계에 보내는 모든 방송은, 이따금 천사장의 회로 위로 목적지까지 직접 가는 **미가엘**의 메시지를 제외하고, 체계 본부에서 중계된다.

4. 거주지와 경영 지역

예루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주지로 배정돼 있고, 한편 체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619개의 인간거주 구체, 56개의 과도기_문화 세계,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직무 감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영 기능에 배정돼 있다. **예루셈**에서 그리고 **네바돈**에서 이 배열은 다음과 같이 고안돼 있다:

1. 원형{圓形} --원주민이 아닌 자들의 거주 지역.
2. 정사각형 --체계의 행정_경영 지역.
3. 직사각형 --비교적 낮은 토착 생명체의 집결지.
4. 삼각형 --지역 경영, 즉 **예루셈** 행정부 지역.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및 삼각형으로 체계 활동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 수도에 공통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열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것은 **창조주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이다.

이 주거 지역과 경영 지역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하나님**의 **물질 아들**들, 즉 **예루셈**의 영구 시민의 방대하고 아름다운 소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수많은 매력 있는 계층의 영 피조물 및 영에 가까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예루셈**은 체계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스피롱가의 유능한 섬김을 받는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 거주자 및 방문자들을 대신해서 영적 사역에 전념한다. 그들은 놀랄만한 지성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의 집단이며, 모든 모론시아 피조물을 유지하고 장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높은 모론시아 피조물 및 모론시아 도우미들을 과도기에 시중드는 하인이다. 그들은, 중도 피조물이 **유란시아**에서 활약하듯이, **예루셈**에서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서 활약하는 중도{中道} 도우미다.

add the reflectivity phenomena to the technique of the Paradise broadcast so that everything heard becomes visible. And it is in this manner that continual foretastes of advancing beauty and grandeur are afforded the mortal survivors as they journey inward on the eternal adventure.

46:3.4 (522.4) The Jerusem sending station is located at the opposite pole of the sphere. All broadcasts to the individual worlds are relayed from the system capitals except the Michael messages, which sometimes go direct to their destinations over the archangels' circuit.

4.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46:4.1 (522.5) Considerable portions of Jerusem are assigned as residential areas, while other portions of the system capital are given over to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functions involving the supervision of the affairs of 619 inhabited spheres, 56 transitional-culture worlds, and the system capital itself. On Jerusem and in Nebadon these arrangements are designed as follows:

46:4.2 (522.6) 1. *The circles* — the nonnative residential areas.

46:4.3 (522.7) 2. *The squares* — the system executive-administrative areas.

46:4.4 (522.8) 3. *The rectangles* — the rendezvous of the lower native life.

46:4.5 (522.9) 4. *The triangles* — the local or Jerusem administrative areas.

46:4.6 (522.10) This arrangement of the system activities into circles, squares, rectangles, and triangles is common to all the system capitals of Nebadon. In another universe an entirely different arrangement might prevail. These are matters determined by the diverse plans of the Creator Sons.

46:4.7 (523.1) Our narrative of these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takes no account of the vast and beautiful estates of the Material Sons of God, the permanent citizens of Jerusem, neither do we mention numerous other fascinating orders of spirit and near-spirit creatures. For example: Jerusem enjoys the efficient services of the spironga of design for system function. These beings are devoted to spiritual ministry in behalf of the supermaterial residents and visitors. They are a wonderful group of intelligent and beautiful beings who are the transition servants of the higher morontia creatures and of the morontia helpers who labor for the upkeep and embellishment of all morontia creations. They are on Jerusem what the midway creatures are on

체계의 수도는, 우주 실존의 세 국면, 즉: 물질, 모론시아, 영 국면 전부를 거의 완전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세계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네가 어떤 물질, 모론시아, 또는 영 인격체든지 상관없이,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중도 피조물과 **물질 아들**들 같은 통합된 존재도 그렇게 느낀다.

예루셈에는 물질적 유형과 모론시아 유형의 거대한 건물들이 있고, 한편 순전히 영적인 지대의 장식도 같은 정도로 정교하고 충만하다. **예루셈**의 기묘한 물리적 장비인 모론시아 보완물(補完物)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더 나아가, 이 본부 세계의 영적 설비의 장엄한 위엄과 정교한 완전성을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설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완전성에 대한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해도, 너희의 개념은 이 웅장함에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셈**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낙원**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서 첫 걸음에 불과하다.

5. 예루셈 원형

주요 집단의 우주 생명체들에게 배정된 거주 예정지는, **예루셈** 원형(圓形)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원주(圓周) 집단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주.

2. 천사 및 상류 영들의 원주.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을 포함하는, **우주 조력자**들의 원주.

4.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원주.

5. 중도 피조물을 포함하여, 배정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주.

6. 우대 거주지의 원주.

7. **완결성취 단체**의 원주.

이렇게 배치된 각 거주지는, 연속으로 높아지는 일곱 개의 동심원(同心圓) 원주로 이뤄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계통을 따라서 건설됐지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질로 형성된다. 이것들은 모두 멀리 미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곱 동심원 집단마다 이를 완전히 둘러싸는 넓은 산책로를 이를 만큼 올라가 있다.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주. **하나님의 아들**들

Urantia, midway helps functio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46:4.8 (523.2) The system capitals are unique in that they are the only worlds which exhibit well-nigh perfectly all three phases of universe existence: the material,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Whether you are a material, morontia, or spirit personality, you will feel at home on Jerusem; so also do the combined beings, such as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Material Sons.

46:4.9 (523.3) Jerusem has great buildings of both material and morontia types, while the embellishment of the purely spiritual zones is no less exquisite and replete. If I only had words to tell you of the morontia counterparts of the marvelous physical equipment of Jerusem! If I could only go on to portray the sublime grandeur and exquisite perfection of the spiritual appointments of this headquarters world! Your most imaginative concept of perfection of beauty and repleteness of appointment would hardly approach these grandeurs. And Jerusem is but the first step on the way to the supernal perfection of Paradise beauty.

5. THE JERUSEM CIRCLES

46:5.1 (523.4) The residential reservations assigned to the major groups of universe life are designated the Jerusem circles. Those circle groups which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are the following:

46:5.2 (523.5) 1. The circles of the Sons of God.

46:5.3 (523.6) 2. The circles of the angels and higher spirits.

46:5.4 (523.7) 3. The circles of the Universe Aids, including the creature-trinitized sons not assigned to the Trinity Teacher Sons.

46:5.5 (523.8) 4. The circle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46:5.6 (523.9) 5. The circles of the assigned ascending mortals, including the midway creatures.

46:5.7 (523.10) 6. The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46:5.8 (523.11) 7. The circle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46:5.9 (523.12) Each of these residential groupings consists of seven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circles. They are all constructed along the same lines but are of different sizes and are fashioned of differing materials. They are all surrounded by far-reaching enclosures, which mount up to form extensive promenades entirely encompassing every group of seven concentric circles.

46:5.10 (524.1) 1. *Circles of the Sons of God.* Though

은 자신들이 교체하는 행성, 즉 과도기 문화 세계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지만, **예루셈**에서도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신성한 아들신분의 다른 모든 계층과 자유롭게 섞인다. 너희는 거기서 이 **아들**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이 특별한 세계와 그 위성들에 국한된다. 아무튼, **예루셈**의 원주들에서는, 아들신분의 다양한 이 집단이 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론티아 시력이 대단히 광범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로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여러 계층인 그들의 흥미를 잡아내는 활동을 내려다볼 수 있다.

아들들의 이 일곱 원주는 동심 형태이고 잇따라 높아져서, 바깥쪽의 큰 원주는 각각 안쪽의 비교적 작은 원주들을 내려다보며, 각 원주는 공공 {公共}의 산책로로 사용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울타리는 변칙이면서 빛나는 수정 보석으로 건축했으며, 각각의 거주지 원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돼 있다. 이런 울타리마다 -- 50개부터 15만 개에 이르는 -- 통과하는 많은 문은, 하나의 진주 같은 수정으로 돼 있다.

아들들의 영토에서 첫째 원주는, **집정관 아들**들과 그들 개인의 참모진이 차지한다. 이 사법 담당 **아들**들이 자신을 증여하고 판결하는 봉사 계획 및 그에 직결된 활동이 모두 여기에 집중된다. 또한 바로 이 중심지를 통해서 체계의 **아보날**들이 우주와 접촉을 유지한다.

둘째 원주는 **삼위일체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성시되는 이 영토에서, **데이날**들과 그 동역자들은 새롭게 도착한 1차 **교사 아들**들에 대한 훈련을 더 진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찬란한 저녁별** 가운데 특정 협조자 부서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이 이 **데이날** 원주에서 한 지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지역 체계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대표자가 될 정도에 이르며;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다. 이 둘째 원주는, **예루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영토다.

셋째 원주는 **멜기세덱**들에게 할애돼 있다. 체계의 우두머리들이 여기에 거주하며, 이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을 감독한다. 첫 맨션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예루셈** 전체 생애 내내, **멜기세덱**들은 양아버지이며 항상 현존하는 충고자다. **물질 아들**과 **딸**들이 항상 하는 활동을 제외하면, **멜기세덱**들이 이 **예루셈**에서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넷째 원주는, **보론다덱**들, 그리고 달리 집이 제공되지 않은 다른 모든 계층의 방문자 및 관찰자인 **아들**들의 집이다. **지고자 성좌 아버지**들은,

the Sons of God possess a social planet of their own, one of the transitional-culture worlds, they also occupy these extensive domains on Jerusalem. On their transitional-culture world the ascending mortals freely mingle with all orders of divine sonship. There you will personally know and love these Sons, but their social life is largely confined to this special world and its satellites. In the Jerusalem circles, however, these various groups of sonship may be observed at work. And since morontia vision is of enormous range, you can walk about on the Sons' promenades and overlook the intriguing activities of their numerous orders.

46:5.11 (524.2) These seven circles of the Sons are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so that each of the outer and larger circles overlooks the inner and smaller ones, each being surrounded by a public promenade wall. These walls are constructed of crystal gems of gleaming brightness and are so elevated as to overlook all of their respective residential circles. The many gates — from fifty to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 which penetrate each of these walls consist of single pearly crystals.

46:5.12 (524.3) The first circle of the domain of the Sons is occupied by the Magisterial Sons and their personal staffs. Here center all of the plans and immediate activities of the bestowal and adjudicational services of these juridical Sons. It is also through this center that the Avonals of the system maintain contact with the universe.

46:5.13 (524.4) The second circle is occupi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In this sacred domain the Daynals and their associates carry forward the training of the newly arrived primary Teacher Sons. And in all of this work they are ably assisted by a division of certain co-ordinat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ccupy a sector of the Daynal circle. The Trinity Teacher Son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al Father in a local system; they are at least Trinity-origin beings. This second circle is a domain of extraordinary interest to all the peoples of Jerusalem.

46:5.14 (524.5) The third circle is devoted to the Melchizedeks. Here the system chiefs reside and supervise the almost endless activities of these versatile Sons. From the first of the mansion worlds on through all the Jerusalem career of ascending mortals, the Melchizedeks are foster fathers and ever-present advisers. It would not be amiss to say that they are the dominant influence on Jerusalem aside from the ever-present activitie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46:5.15 (524.6) The fourth circle is the home of the Vorondadeks and all other orders of the visiting and observer Sons who are not otherwise

점검하기 위해 지역 체계를 방문할 때, 이 원주에 거주지를 정한다. 체계에서 일할 때,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은 모두 이 원주에 거주한다.

다섯째 원주는, **라노난덱**들, 즉 아들신분 계층인 **체계 주권자**와 **행성 왕자**들의 거주지다. 세 집단은 이 영토에서 쉴 때 하나로 섞인다. 체계 예비군이 이 원주에서 모여, 한편 **체계 주권자**는 행정부 언덕에 있는, 통치하는 구조물 단지(團地)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의 성전을 갖고 있다.

여섯째 원주는 체계 **생명 운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계층의 **아들**들은 모두 여기에 소집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으로부터 세계로 나아간다.

일곱째 원주는 상승하는 아들들의 집결지인데, 그들은 자신의 스랍 배우자와 함께 체계 본부에서 임시로 활동할 수 있는, 배정된 필사자다. **예루셈** 시민권보다 높고 완결성취자 신분보다는 낮은, 전에 필사자였던 모든 존재는, 이 원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도록 계수된다.

아들들을 위한 이 둥그런 보호구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며, 1,900년 전까지, 그 중앙에 큰 빈 공간이 있었다. 이 중앙 지역에는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완성됐다. 495년 전에, 이 성전이 봉헌됐을 때, **미가엘**이 친히 참석했었고, **예루셈** 전역은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했던 **으뜸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이제, **미가엘** 증여로 인해 발생된, 수정된 체계 관리에 내포되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인데, 이 활동은 최근에 이식(移植)된 **살빙톤** 활동 대부분을 포함한다. 기념관의 직원은 100만 명 이상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2. **천사의 원주**. **아들**들의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원주는 잇따라 높아지는 일곱 동심(同心) 원주로 이뤄져 있는데, 각각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내려다보게 돼있다.

천사들의 첫째 원주는, 본부 세계에 머물게 되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곧 **단독 사자**들과 그 동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둘째 원주는, 사자(使者) 무리, **법해석 고문**, 동무, 검사관(檢査官), 그리고 기록원들이, 때때로 **예루셈**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끼리만 차지한다. 셋째 원주는 상류 계층과 집단의 돌보는 영들이 차지한다.

provided for. The Most High Constellation Fathers take up their abode in this circle when on visits of inspection to the local system.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all reside in this circle when on duty in the system.

46:5.16 (524.7) The fifth circle is the abode of the Lanonandeks, the sonship order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The three groups mingle as one when at home in this domain. The system reserves are held in this circle, while the System Sovereign has a temple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governing group of structures on administration hill.

46:5.17 (524.8) The sixth circle is the tarrying place of the system Life Carriers. All orders of these Sons are here assembled, and from here they go forth on their world assignments.

46:5.18 (524.9) The seventh circle is the rendezvous of the ascending sons, those assigned mortals who may be temporarily functioning on the system headquarters, together with their seraphic consorts. All ex-mortals above the status of Jerusem citizens and below that of finaliters are reckoned as belonging to the group having its headquarters in this circle.

46:5.19 (525.1) These circular reservations of the Sons occupy an enormous area, and until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re existed a great open space at its center. This central region is now occupied by the Michael memorial, completed some five hundred years ago. Four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go, when this temple was dedicated, Michael was present in person, and all Jerusem heard the touching story of the Master Son's bestowal on Urantia, the least of Satania. The Michael memorial is now the center of all activities embraced in the modified management of the system occasioned by Michael's bestowal, including most of the more recently transplanted Salvington activities. The memorial staff consists of over one million personalities.

46:5.20 (525.2) 2. *The circles of the angels.* Like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ons, these circles of the angels consist of seven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circles, each overlooking the inner areas.

46:5.21 (525.3) The first circle of the angels is occupied by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who may be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 — Solitary Messengers and their associates. The second circle is dedicated to the messenger hosts, Technical Advisers, companions, inspectors, and recorders as they may chance to function on Jerusem from time to time. The third circle is held by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higher orders and groupings.

46:5.22 (525.4) The fourth circle is held by the

네째 위즈느 해저과 스라비이 카지찬구 이오

첫째 원주는 광대한 저녁별의 서각이고 있으며, **사타니아**와 같은 지역 체계에서 근무하는 스라빔은 “무수한 천사 무리”이다. 다섯째 원주는 행성 스라빔이 차지하며, 한편 여섯째는 과도기 사역자들의 집이다. 일곱째 원주는 스라빔 중에서 계시되지 않은 어떤 계층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들 중에서 기록원들은 동료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예루셈** 기록 성전에 거주한다. 모든 기록은 이 삼중 보관소에 세 복사본으로 보관돼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기록이, 물질 형태, 모론시아 형태, 및 영 형태로 항상 보관된다.

이 일곱 원주는, 둘레가 5,000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예루셈**의 전시{展示} 파노라마로 둘러싸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는 **사타니아** 세계들의 진보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일에 전용으로 쓰이며, 각 행성의 최근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수정된다. 초기의 방문 중에 너희에게 확장된 여가 시간이 허락될 때, 천사의 원주들을 내려다보는 이 광대한 산책로가 너희의 주의를 끄는, **예루셈**의 첫 광경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예루셈의 원주민 생명체가 이런 전시{展示}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예루셈**에 머무는, 여러 **사타니아** 세계에서 온 상승자의 도움을 받는다. 행성의 상황과 세계 진보에 대한 묘사는, 여러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더러는 너희에게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기법이다. 이 전시는 이 광대한 율타리 바깥쪽 가장자리를 차지한다. 그 산책로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완전하게 열린 상태인데, 고귀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장식돼 있다.

3. **우주 조력자**들의 원주에는, 거대한 중앙 공간에 자리잡은 **저녁별**들의 본부가 있다. **갈란티아**의 체계 본부가 여기에 위치하는데, **갈란티아**는 이 강력한 최고천사들의 부{副} 우두머리이고, 상승한 **저녁별** 전체 중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자다. 이 본부는 최근에 건축된 것에 속하지만, **예루셈**의 경영 구역 전체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이 중심지는 직경이 50마일이다. **갈란티아** 본부는 완전히 투명한, 부어서 만든 하나의 수정이다.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 존재는, 물질이자 모론시아인 이 수정들을 높이 평가한다. 창조된 **저녁별**들은 **예루셈**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인격 이외의 그런 속성을 지닌다. 전체 세계가 영적으로 향기로운 모습인데, 그들의 활동 가운데 다수가 **살빙톤**에서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4.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원주. 다양한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능력 있는 거대한 회당 주변에 동심{同心}으로 배치돼 있는데, 거기서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우두머리와 연합하여, 체계

THE fourth circle is held by the administrator seraphim, and the seraphim serving in a local system like Satania are an “innumerable host of angels.” The fifth circle is occupied by the planetary seraphim, while the sixth is the home of the transition ministers. The seventh circle is the tarrying sphere of certain unrevealed orders of seraphim. The recorders of all these groups of angels do not sojourn with their fellows, being domiciled in the Jerusalem temple of records. All records are preserved in triplicate in this threefold hall of archives. On a system headquarters, records are always preserved in material, in morontia, and in spirit form.

46:5.23 (525.5) These seven circles are surrounded by the exhibit panorama of Jerusalem, five thousand standard miles in circumference, which is devot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advancing status of the peopled worlds of Satania and is constantly revised so as to truly represent up-to-date conditions on the individual planets. I doubt not that this vast promenade overlooking the circles of the angels will be the first sight of Jerusalem to claim your attention when you are permitted extended leisure on your earlier visits.

46:5.24 (525.6) These exhibits are in charge of the native life of Jerusalem, but they are assisted by the ascenders from the various Satania worlds who are tarrying on Jerusalem en route to Edentia. The portrayal of planetary conditions and world progress is effected by many methods, some known to you, but mostly by techniques unknown on Urantia. These exhibits occupy the outer edge of this vast wall. The remainder of the promenade is almost entirely open, being highly and magnificently embellished.

46:5.25 (525.7) 3. *The circles of the Universe Aids* have the headquarters of the Evening Stars situated in the enormous central space. Here is located the system headquarters of Galantia, the associate head of this powerful group of superangels, being the first commissioned of all the ascendant Evening Stars. This is one of the most magnificent of all the administrative sectors of Jerusalem, even though it is among the more recent constructions. This center is fifty miles in diameter. The Galantia headquarters is a monolithic cast crystal, wholly transparent. These material-morontia crystals are greatly appreciated by both morontia and material beings. The created Evening Stars exert their influence all over Jerusalem, being possessed of such extrapersonality attributes. The entire world has been rendered spiritually fragrant since so many of their activities were transferred here from Salvington.

46:5.26 (526.1) 4. *The circle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various ord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concentrically arranged around the vast temple of power, wherein presides

의 동력 우두머리가 주관한다. 이 동력 회당은 상승하는 필사자와 중도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예루셈**에 있는 두 지역 가운데 하나다. 다른 하나는 **물질 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非}물질화 된 구역, 즉 일련의 실험실인데, 여기서 운반 스라빔이 물질 존재들을 모른시아 계층의 존재와 매우 비슷한 상태로 변형시킨다.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주**. 상승하는 필사자 원주들의 중앙 지역은, 체계의 인간거주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개의 행성 기념관 단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광범한 변화를 겪는다. 각 세계에서 온 필사자들은, 자신의 행성 기념관을 이따금 특정하게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특권을 누린다. 많은 변화가 지금도 **유란시아** 구조물들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619개 회당의 중앙을, **에덴시아** 및 그에 딸린 여러 상승 문화 세계의 실용 모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직경이 40마일이며, **에덴시아** 체계를 실제 모습으로 복제한 것인데, 모든 면에서 원본과 다름없다.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즐겁게 봉사하며, 다른 집단들의 기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이 다양한 원주에서 이뤄진 모든 것은, 온 **예루셈**이 전부 관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런 세계의 활동에는: 일, 진보, 및 놀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다양성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활동은: 봉사, 연구, 및 휴식이다. 복합된 활동은, 사회적 교제, 집단 연회, 및 신성한 경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집단의 인격체, 즉 자신의 동료와는 매우 다른 계층들과 어울리는 것에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6. **우대 거주지들의 원주**. 거대한 세 구조물이 우대 거주지의 일곱 원주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이 구조물은: **예루셈**의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 화랑, 그리고 회고 지휘자들의 거대한 집회 강당인, 휴식과 유흥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모른시아 활동 공연장 등이다.

천상의 기능공들이 스포르나기아를 지휘하며, 공중 집회가 이뤄지는 각 장소에 풍부하게 있는 창조적 장식물과, 다수의 기념비적 기념관을 제공한다. 이 기능공들의 작업장은, 이 훌륭한 세계의 비길 데 없는 구조물 전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해당한다. 다른 우대 거주지에는 넓고 아름다운 본부가 유지된다. 이런 건물 가운데 다수는 전부 수정 보석으로 지어졌다. 모든 건축양식 세계에는, 수정, 그리고 소위 귀금속이 풍부하다.

the power chief of the system in association with the chief of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This temple of power is one of two sectors on Jerusalem where ascending mortals and midway creatures are not permitted. The other one is the dematerializing sector in the area of the Material Sons, a series of laboratories wherein the transport seraphim transform material beings into a state quite like that of the morontia order of existence.

46:5.27 (526.2) 5. *The circles of the ascending mortals.* The central area of the circles of the ascending mortals is occupied by a group of 619 planetary memorials representative of the inhabited worlds of the system, and these structures periodically undergo extensive changes. It is the privilege of the mortals from each world to agree, from time to time, upon certain of the alterations or additions to their planetary memorials. Many changes are even now being made in the Urantia structures. The center of these 619 temples is occupied by a working model of Edentia and its many worlds of ascendant culture. This model is forty miles in diameter and is an actual reproduction of the Edentia system, true to the original in every detail.

46:5.28 (526.3) Ascenders enjoy their Jerusalem services and take pleasure in observing the techniques of other groups. Everything done in these various circles is open to the full observation of all Jerusalem.

46:5.29 (526.4) The activities of such a world are of three distinct varieties: work, progress, and play. Stated otherwise, they are: service, study, and relaxation. The composite activities consist of social intercourse, group entertainment, and divine worship. There is great educational value in mingling with diverse groups of personalities, orders very different from one's own fellows.

46:5.30 (526.5) 6. *The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The seven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are graced by three enormous structures: the vast astronomic observatory of Jerusalem, the gigantic art gallery of Satania, and the immense assembly hall of the reversion directors, the theater of morontia activities devoted to rest and recreation.

46:5.31 (526.6) The celestial artisans direct the spornagia and provide the host of creative decorations and monumental memorials which abound in every place of public assembly. The studios of these artisans are among the largest and most beautiful of all the matchless structures of this wonderful world. The other courtesy colonies maintain extensive and beautiful headquarters. Many of these buildings are constructed wholly of crystal gems. All the architectural worlds abound in crystals and the so-called precious metals.

7. 완결성취자들의 원주는 중앙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바로 이 성전이, **네바돈** 전역의 각 체계 본부 세계에서 발견된다. **예루셈**에 있는 이 건물은 **미가엘**의 휘장으로 봉인돼 있으며, 거기는:“일곱째 영 단계까지--곧 영원히 양도될 때까지-- 개관되지 않는다”고 새겨져 있다. **가브리엘**이 신비로운 이 성전을 인봉{印封}했으며, **미가엘** 이외에 누구든지, **빛나는 새벽별**이 부착한 주권자의 인봉을 뜯을 수 없고 뜯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꿰뚫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이 고요한 성전을 언젠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기타 원주:이 거주지 원주들 외에, **예루셈**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주지가 있다.

6. 행정_경영 정사각형

이 체계의 행정_경영 부서는, 1,000개에 이르는 거대한 분과별 정사각형 안에 자리잡고 있다. 각 경영 단위는 100개 하위부서로 나뉘고, 각 하위 부서는 10개의 하위집단으로 돼있다. 이 1,000개의 정사각형은 10개의 큰 부서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경영 분과{分課}를 구성한다:

1. 물리적 유지 및 물질 개선, 즉 물리적 동력 및 에너지 분야.
2. 중재, 윤리, 및 경영 판결.
3. 행성 및 지역의 직무.
4. 성좌 및 우주의 직무.
5. 교육 및 **멜기세덱**들의 기타 활동.
6. 행성 및 체계의 물리적 진보, **사타니아** 활동 중에서 과학 분야.
7. 모론시아 직무.
8. 순전한 영 활동 및 윤리.
9. 상승자를 돌봄.
10. 광우주 철학.

이 구조물들은 투명하며;그래서 연구하는 방문자들도 모든 체계 활동을 구경할 수 있다.

7.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예루셈의 1,000개의 직사각형은 본부 행성의

46:5.32 (527.1) 7. The circles of the finalizers have a unique structure at the center. And this same vacant temple is found on every system headquarters world throughout Nebadon. This edifice on Jerusem is sealed with the insignia of Michael, and it bears this inscription: “Undedicated to the seventh stage of spirit — to the eternal assignment.” Gabriel placed the seal on this temple of mystery, and none but Michael can or may break the seal of sovereignty affixed b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ome day you shall look upon this silent temple, even though you may not penetrate its mystery.

46:5.33 (527.2) Other Jerusem circles: In addition to these residential circles there are on Jerusem numerous additional designated abodes.

6. THE EXECUTIVE-ADMINISTRATIVE SQUARES

46:6.1 (527.3) The executive-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system are located in the immense departmental squares, one thousand in number. Each administrative unit is divided into one hundred subdivisions of ten subgroups each. These one thousand squares are clustered in ten grand divisions, thus constituting the following t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 46:6.2 (527.4) 1. Physical maintenance and material improvement, the domains of physical power and energy.
 - 46:6.3 (527.5) 2. Arbitration, ethics, an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 46:6.4 (527.6) 3. Planetary and local affairs.
 - 46:6.5 (527.7) 4. Constellation and universe affairs.
 - 46:6.6 (527.8) 5. Education and other Melchizedek activities.
 - 46:6.7 (527.9) 6. Planetary and system physical progress, the scientific domains of Satania activities.
 - 46:6.8 (527.10) 7. Morontia affairs.
 - 46:6.9 (527.11) 8. Pure spirit activities and ethics.
 - 46:6.10 (527.12) 9. Ascendant ministry.
 - 46:6.11 (527.13) 10. Grand universe philosophy.
- 46:6.12 (527.14) These structures are transparent; hence all system activities can be viewed even by student visitors.

7. THE RECTANGLES — THE SPORNAGIA

46:7.1 (527.15) The one thousand rectangles of

하위 원주민 생명체가 차지하며, 그 중앙에는 스포르나기아의 광대한 원형{圓形} 본부가 있다.

너희는 **예루셈**에서 훌륭한 스포르나기아의 농업 업적에 놀랄 것이다. 거기서 땅은 주로 심미적 효과와 장식 효과를 위해 경작된다. 스포르나기아는 본부 세계들의 조경{造景} 원예가이며, **예루셈**의 빈 공간을 처리할 때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데 동물과 수많은 기계 장치를 활용한다. 그들은 자기 영역의 동력 장치를 활용함에서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 피조물인, 자신보다 못한 수많은 계층의 형제들을 활용함에서 지성적으로 노련하며, 많은 하등 동물이 이 여러 특별 세계에서 그들에게 제공된다. 대체로, 진화 구체들에서 온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이, 지금 이 계층의 동물 생명체를 지도한다.

스포츠르나기아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존하는 혼이 없지만, 긴 생애를 살 때, 때로는 4만 년에서 5만 년의 표준 연도에 이른다. 그들의 숫자는 군단을 이루며, 물질 봉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에게 물리적 사역을 제공한다.

스포츠르나기아는 생존하는 혼을 갖지 않고, 그 혼이 진화되지 않으며, 인격을 소유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육신화 되는, 체험할 수 있는 개체성을 발전시킨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피조물의 육신이 낡아지고 나이 들어 악화되면, 그 창조자들은, **생명 운반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늙은 스포르나기아가 그 속에 자기 거주지를 다시_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제작한다.

스포츠르나기아는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이 종류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재육신화{再肉身化}를 체험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들은 처음 다섯 보조 정신_영에 대해서만 반응하며;경배의 기질과 지혜의 기질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섯_보조 정신은, 전체성, 즉 여섯째 실제 수준과 대등하게 되며, 체험적 전체성으로서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요소다.

그들에 견줄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유용하고도 비범한 피조물을 설명하는 일을 맡으면서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닌데,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현재 형태와 지위로 입안했다. 그들은 자웅동체{雌雄同體}이며, 늘어나는 인구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대로 번식한다.

충실한 말{馬}과 애정 어린 개의 혼합된 특징을 포함하고, 가장 높은 유형의 침팬지보다 능가하는 지능을 그들이 나타낸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Jerusem are occupied by the lower native life of the headquarters planet, and at their center is situated the vast circular headquarters of the spornagia.

46:7.2 (527.16) On Jerusem you will be amazed by the agricultural achievements of the wonderful spornagia. There the land is cultivated largely for aesthetic and ornamental effects. The spornagia are the landscape gardeners of the headquarters worlds, and they are both original and artistic in their treatment of the open spaces of Jerusem. They utilize both animals and numerous mechanical contrivances in the culture of the soil. They are intelligently expert in the employment of the power agencies of their realms as well as in the utilization of numerous orders of their lesser brethren of the lower animal creations, many of which are provided them on these special worlds. This order of animal life is now largely directed by the ascending midway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spheres.

46:7.3 (528.1) Spornagia are not Adjuster indwelt. They do not possess survival souls, but they do enjoy long lives, sometimes to the extent of forty to fifty thousand standard years. Their number is legion, and they afford physical ministry to all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requiring material service.

46:7.4 (528.2) Although spornagia neither possess nor evolve survival souls, though they do not have personality, nevertheless, they do evolve an individuality which can experience reincarnation. When,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physical bodies of these unique creatures deteriorate from usage and age, their creators, in collaboration with the Life Carriers, fabricate new bodies in which the old spornagia re-establish their residences.

46:7.5 (528.3) Spornagia are the only creatures in all the universe of Nebadon who experience this or any other sort of reincarnation. They are only reactive to the first five of the adjutant mind-spirit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spirits of worship and wisdom. But the five-adjutant mind equivalates to a totality or sixth reality level, and it is this factor which persists as an experiential identity.

46:7.6 (528.4) I am quite without comparisons in undertaking to describe these useful and unusual creatures as there are no animals on the evolutionary worlds comparable to them. They are not evolutionary beings, having been projected by the Life Carriers in their present form and status. They are bisexual and procreate as they are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a growing population.

46:7.7 (528.5) Perhaps I can best suggest to Urantia minds something of the nature of these beautiful and serviceable creatures by saying that they

내가 이 아름답고 유용한 피조물의 본성에 대해 **유란시아** 지성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설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육체적 표준으로 평가할 때, 그들은 매우 아름답다. 그들은, 이런 건축양식 세계에 있는 물질 및 약간물질 체류자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배려를, 최고로 고맙게 여긴다. 그들의 시력은, --물질 존재들 외에도-- 모론시아 피조물, 하등 천사 계층, 중도 피조물, 그리고 낮은 계층의 영 인격체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무한자**에 대한 경배를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자**의 의미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주인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자신의 범주에서 외견상 영적 헌신에 참여한다.

장래의 어떤 우주 시대에, 이 충실한 스포르나기아가 동물 수준의 실존에서 벗어나, 진보하는 지성적 성장과, 심지어 영적 성취까지 이루는, 훌륭한 진화 운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8. 예루셈 삼각형

순전히 국지적이고 일상적인 **예루셈**의 직무가, 100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행정부를 유치(誘致)하는 10개의 신기한 구조물 주변에 무리 지어 있다. 그 삼각형들은, 체계 본부 역사를 묘사하는 파노라마로 둘러싸였다. 현재, 원형(圓形)으로 엮어진 이 줄거리 중에서, 2표준마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돼 있다. 이 부분은 **사타니아**가 성좌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때 재생될 것이다. 이 사건을 위한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가 갖추졌지만,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은 **루시퍼** 반역의 용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완결하지 않았다. 최고 반역자들, 즉 빛에서 어둠 속으로 떨어져버린 높은 피조 존재들을 **사타니아**가 품고 있는 한, **사타니아**는 **노라티아덱**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타니아가 성좌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고립된 세계들을 인간거주 행성들의 체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고려되고, 그 후에 그 세계들은 영적 교류가 있는 영역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가 체계 계도로 회복되더라도, 다른 모든 체계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하는 **노라티아덱** 격리 아래에, 너희의 체계 전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 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사타니아** 체계를 **노라티아덱** 성좌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유란시아** 및 고립된 다른 구체들은 **사타니아** 회로로 회복될 것이고, 그런 세계들은 행성 간 통신과 체계간 교류라는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embrace the combined traits of a faithful horse and an affectionate dog and manifest an intelligence exceeding that of the highest type of chimpanzee. And they are very beautiful, as judged by the physical standards of Urantia. They are most appreciative of the attentions shown them by the material and semimaterial sojourners on these architectural worlds. They have a vision which permits them to recognize — in addition to material beings — the morontia creations, the lower angelic orders, midway creatures, and some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They do not comprehend worship of the Infinite, nor do they grasp the import of the Eternal, but they do, through affection for their masters, join in the outward spiritual devotions of their realms.

46:7.8 (528.6)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in a future universe age, these faithful spornagia will escape from their animal level of existence and attain a worthy evolutionary destiny of progressive intellectual growth and even spiritual achievement.

8. THE JERUSEM TRIANGLES

46:8.1 (528.7) The purely local and routine affairs of Jerusalem are directed from the one hundred triangles. These units are clustered around the ten marvelous structures domiciling the local administration of Jerusalem. The triangles are surrounded by the panoramic depiction of the system headquarters history. At present there is an erasure of over two standard miles in this circular story. This sector will be restored upon the readmission of Satania into the constellation family. Every provision for this event has been made by the decrees of Michael, but the tribunal of the Ancients of Days has not yet finished the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Satania may not come back into the full fellowship of Norlatiadek so long as it harbors archrebels, high created beings who have fallen from light into darkness.

46:8.2 (529.1) When Satania can return to the constellation fold, then will come up for consideration the readmission of the isolated worlds into the system family of inhabited planets, accompanied by their restoration to the spiritual communion of the realms. But even if Urantia were restored to the system circuits, you would still be embarrassed by the fact that your whole system rests under a Norlatiadek quarantine partially segregating it from all other systems.

46:8.3 (529.2) But ere long, the adjudication of Lucifer and his associates will restore the Satania system to the Norlatiadek constellation, and subsequently, Urantia and the other isolated spheres will be restored to the Satania circuits, and again will such worlds enjoy the privileges of interplanetary

반역자들과 반역의 끝이 다가올 것이다. **최상급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지만, 고의로 조장된 악에 대한 법은 보편적으로 반드시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곧 영원한 소멸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communication and intersystem communion.

^{46:8.4 (529.3)} There will come an end for rebels and rebellion. The Supreme Rulers are merciful and patient, but the law of deliberately nourished evil is universally and unerringly executed. “The wages of sin is death” — eternal obliteration.

^{46:8.5 (529.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47편. 일곱 맨션 세계

⇨ 046

유란시아 책

048 ⇨

II 부. 지방우주

제47편
일곱 맨션 세계

섹션

소개

1. 완결성취자의 세계
2. 보호관찰 육아원
3. 첫째 맨션 세계
4. 둘째 맨션 세계
5. 셋째 맨션 세계
6. 넷째 맨션 세계
7. 다섯째 맨션 세계
8. 여섯째 맨션 세계
9. 일곱째 맨션 세계
10. 예루셈 시민권

소개

창조주 아들은,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우주에 맨션이 많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셈**을 돌고 있는 56세계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의 과도기 문화에 할애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_번 세계의 일곱 위성은 맨션 세계로 알려져 있다.

1_번 과도기 세계 자체는 오로지 상승 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사타니아**에 배정된 완결성취자 단체의 본부다. 이 세계는 현재 10만 개 이상의 완결성취자 중대{中隊}를 위한 본부로서 이바지하며, 이 집단 각각에는 1,000명의 영화롭게 된 존재가 있다.

한 체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그리고 맨션 세계들이 필사자_훈련소로서 이바지하기를 하나씩 멈추게 되면, 점증하는 완결성취자 주민{住民}이 맨션 세계들을 차지하는데, 그 주민은 오래되고 고도로 완비된 이 체계들로 모여든다.

PAPER 47

THE SEVEN MANSION WORLD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inaliters' World
2. The Probationary Nursery
3. The First Mansion World
4. The Second Mansion World
5. The Third Mansion World
6. The Fourth Mansion World
7. The Fifth Mansion World
8. The Sixth Mansion World
9. The Seventh Mansion World
10. Jerusem Citizenship

INTRODUCTION

47:0.1 (530.1) THE Creator Son, when on Urantia, spoke of the “many mansions in the Father’s universe.” In a certain sense, all fifty-six of the encircling worlds of Jerusem are devoted to the transitional culture of ascending mortals, but the seven satellites of world number one are more specifically known as the mansion worlds.

47:0.2 (530.2) Transition world number one itself is quite exclusively devoted to ascendant activities, being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 corps assigned to Satania. This world now serves as the headquarters for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companies of finaliters, and there are one thousand glorified beings in each of these groups.

47:0.3 (530.3) When a system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as the mansion worlds one by one cease to serve as mortal-training stations, they are taken over by the increasing finaliter population which accumulates in these older and more highly perfected systems.

일곱 맨션 세계는 모론시아 감독관과 **멜기세덱**들이 책임 맡고 있다. 각 세계에는, **예루셈** 통치자들에게 직접 응답하는 한 명의 대리 장관이 있다. **우버사** 화해자들은 각 맨션 세계에 본부를 유지하며, 한편 **법해석 고문**들의 지방 회합 장소가 인접해 있다. 회고 지휘자와 천상(天上)의 기능공들은 이 세계들 각각에 집단 본부를 둔다. 스포롱가는 2 번 맨션세계로부터 그 다음 세계들 쪽으로 활동하며, 한편 일곱 세계 전체는, 다른 과도기_문화 행성 및 본부 세계들과 공동으로, 표준(標準) 창조에 해당하는 스포르나기아를 풍성하게 제공 받는다.

1. 완결성취자의 세계

1 번 과도기 세계에는, 오직 완결성취자와, 어떤 집단의 구원된 자녀 및 그 보호자들이 거주하지만, 영 존재, 과도기 필사자, 및 연구하는 방문자들 전체를 환대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스포르나기아는 이 세계들에 어디서나 활동하는데,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손한 주최자(主催者)다. 그들은 완결성취자들에 관해서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너희가 현재의 육체적 상태에서 천사를 고려하는 것과 비슷하게 완결성취자를 고려함에 틀림없다.

완결성취자 세계가 정교한 물리적 아름다움과 색다른 모론시아 장식으로 이뤄진 구체일지라도, 활동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한 영 거주지, 즉 완결성취자들의 회당은, 도움 받지 않은 물질 시력이나 초기 모론시아 시력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변형자들은, 상승하는 이 실체 가운데 다수를 필사자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이 문화 구체에서 맨션 세계 학생의 수업 집회가 열리는 경우처럼, 때때로 그렇게 활동한다.

맨션 세계에서 체험하는 동안 내내, 너희는 **낙원**을 달성한 너희의 영화롭게 된 형제의 현존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자각하겠지만, 때때로 그들의 본부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실제로 감지하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다. 너희가 참된 영(靈) 시력을 획득하기 전에는 완결성취자를 자연스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첫 맨션 세계에서, 모든 생존자는 자신이 출생한 행성 출신 부모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의 **유란시아** 위원회는 최근에 도착한 열두 쌍의 부모로 구성돼 있는데, 그들은 필사자로서 사춘기 시기까지 셋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체험을 했다. 이 위원회에서 근무는 교대로 이뤄지고 원칙적으로는 오직 10년 동안이다. 부모로서 겪는 체험에 관해서 이 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는 누구나, **예루셈**에 있는 **물질 아들**들의 가정에서, 또는 완결성취자 세계에

47:0.4 (530.4) The seven mansion worlds are in charge of the morontia supervisors and the Melchizedeks. There is an acting governor on each world who is directly responsible to the Jerusem rulers. The Uversa conciliators maintain headquarters on each of the mansion worlds, while adjoining is the local rendezvous of the Technical Advisers. The reversion directors and celestial artisans maintain group headquarters on each of these worlds. The spironga function from mansion world number two onward, while all seven, in common with the other transitional-culture planets and the headquarters world, are abundantly provided with spornagia of standard creation.

1. THE FINALITERS' WORLD

47:1.1 (530.5) Although only finaliters and certain groups of salvaged children and their caretakers are resident on transitional world number one, provision is made for the entertainment of all classes of spirit beings, transition mortals, and student visitors. The spornagia, who function on all of these worlds, are hospitable hosts to all beings whom they can recognize. They have a vague feeling concerning the finaliters but cannot visualize them. They must regard them much as you do the angels in your present physical state.

47:1.2 (530.6) Though the finaliter world is a sphere of exquisite physical beauty and extraordinary morontia embellishment, the great spirit abode located at the center of activities, the temple of the finaliters, is not visible to the unaided material or early morontia vision. But the energy transformers are able to visualize many of these realities to ascending mortals, and from time to time they do thus function, as on the occasions of the class assemblies of the mansion world students on this cultural sphere.

47:1.3 (531.1) All through the mansion world experience you are in a way spiritually aware of the presence of your glorified brethren of Paradise attainment, but it is very refreshing, now and then, actually to perceive them as they function in their headquarters abodes. You will not spontaneously visualize finaliters until you acquire true spirit vision.

47:1.4 (531.2) On the first mansion world all survivors must pass the requirements of the parental commission from their native planets. The present Urantia commission consists of twelve parental couples, recently arrived, who have had mortal experience in rearing three or more children to the pubescent age. Service on this commission is rotational and is for only ten years as a rule. All who fail to satisfy these commissioners as to their parental experience must further qualify by service

있는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얼마간 근무함으로써 자격을 더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로서 겪는 체험에 상관없이, 자기 자녀가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자라난 맨션 세계 부모에게는, 그런 자녀의 훈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의 모른시아 관리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진다. 이 부모들은 1년에 네 번까지 그곳으로 방문여행을 하도록 허락된다. 그리고 맨션 세계의 부모가 완결성취자 세계로 주기적 순례 여행을 하는 기회에, 자신의 물질 자손을 품에 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상승하는 전체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장면들 가운데 하나다.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그 자녀보다 먼저 맨션 세계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흔히 얼마 동안 같은 시대에 산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누구든지, 물질 세계에서, 또는 그 후에 완결성취자 세계나 **예루셈**에서, 아이를--곧 자기 자녀 또는 다른 아이를-- 기르는 체험을 피할 수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확실하게 이 필수 체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녀 양육을 주로 어머니의 과제로 여기는 것은, **유란시아**에 있는 현대인의 불행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자녀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필요하며,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는 만큼 부모로서의 이 체험이 필요하다.

2. 보호관찰 육아원

유아{乳兒}를 영접하는 **사타니아** 학교는, 완결성취자 세계, 즉 **예루셈** 과도기 문화 구체들 중에서 첫 구체에 자리잡고 있다. 유아를 영접하는 이 학교들은, 우주 기록부에서 개별 신분을 획득하기 전에 진화 공간 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시간세계의 자녀를 기르고 훈련하는 데 전념하는 계획사업이다. 그런 자녀의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생존하는 경우에, 운명 수호자는 자신과 연합한 체루빔을 그 자녀의 잠재적 정체성의 관리인으로 대행하게 하는데, 모른시아 세계의 보호관찰 육아원에 있는 **맨션 세계 선생**들의 손에, 발달하지 못한 이 혼을 전달하는 책임을, 그 체루빔에게 부과한다.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 **맨션 세계 선생**들로서, 그 완결성취자들의 보호관찰 피보호자를 훈련하기 위해 그런 확장된 교육 기관들을 유지하는 이는, 자기 자리에서 떠난, 바로 이 체루빔이다. 완결성취자들의 이 피보호자들, 즉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이 유아{乳兒}들은, 변식 잠재력을 제외하고, 반드시 죽을 때와 똑같은 육체 상태 그대로 인격화된다. 이렇게 깨어나는 것은, 그 부모가 첫 맨션 세계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음 때

in the homes of the Material Sons on Jerusem or in part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s world.

47.1.5 (531.3) But irrespective of parental experience, mansion world parents who have growing children in the probation nursery are given every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the morontia custodians of such children regarding their instruction and training. These parents are permitted to journey there for visits as often as four times a year. And it is one of the most touchingly beautiful scenes of all the ascending career to observe the mansion world parents embrace their material offspring on the occasions of their periodic pilgrimages to the finaliter world. While one or both parents may leave a mansion world ahead of the child, they are quite often contemporary for a season.

47.1.6 (531.4) No ascending mortal can escape the experience of rearing children — their own or others — either on the material worlds or subsequently on the finaliter world or on Jerusem. Fathers must pass through this essential experience just as certainly as mothers. It is an unfortunate and mistaken notion of modern peoples on Urantia that child culture is largely the task of mothers. Children need fathers as well as mothers, and fathers need this parental experience as much as do mothers.

2. THE PROBATIONARY NURSERY

47.2.1 (531.5) The infant-receiving schools of Satania are situated on the finaliter world, the first of the Jerusem transition-culture spheres. These infant-receiving schools are enterprises devoted to the nurture and training of the children of time, including those who have di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before the acquirement of individual status on the universe records. In the event of the survival of either or both of such a child's parents, the guardian of destiny deputizes her associated cherubim as the custodian of the child's potential identity, charging the cherubim with the responsibility of delivering this undeveloped soul into the hands of the Mansion World Teachers in the probationary nurseries of the morontia worlds.

47.2.2 (531.6) It is these same deserted cherubim who, as Mansion World Teach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maintain such extensive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training of the probationary wards of the finaliters. These wards of the finaliters, these infants of ascending mortals, are always personalized as of their exact physical status at the time of death except for reproductive potential. This awakening occurs at the exact time of the parental arrival on the first mansion world. And then are these children given

문에 그렇게 불시에 그들의 생애를 끝냈던 그 세상에서 그들이 선택했을 뻔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

그 유아 세계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피조물은, 자신이 **조율사**를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시간 세계와 똑같이 **조율사**가 이 물질 자녀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다. **조율사**를 받기 이전 나이의 자녀들은 다섯 명씩 가족을 이뤄서 보살핌을 받으며, 한 살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부터 약 다섯 살, 즉 **조율사**가 도착하는 나이까지의 범위이다.

진화 세계에서, **사교 조율사**를 가졌었지만 죽기 전에 **낙원** 생애에 관해 선택을 하지 않은 모든 자녀 역시,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 되는데, **조율사** 없이 도착했지만 나중에 도덕적(道德的) 선택에 필요한 나이에 이른 후에 **신비 관찰자**를 받게 될 그 어린이들처럼, 그들은 거기서 **물질 아들들** 및 그 동역자들의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조율사가 내주했던 아이 및 청소년 역시,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다섯 명으로 된 가족 안에서 양육되는데, 여섯 살부터 열네 살까지의 범위이며; 이 가족은 대체로, 여섯, 여덟, 열, 열둘, 및 열네 살의 자녀로 구성된다. 열여섯 살이 지난 후 언제든지, 최종 선택을 하면, 그들은 첫 맨션 세계로 옮겨져서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더러는 이 나이에 이르기 전에 선택하고 상승하는 구체들로 가지만, **유란시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열여섯 살 이하의 아이는 맨션 세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진화하는 행성들에서 필사자를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과 똑같이, 수호 스라빔은 완결성취자 세계의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이 청소년을 돌보는 데,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는 충성스런 스포르나기아가 보살핀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최종 선택을 할 때까지 과도기 세계에서 성장한다.

물질 생명이 그 과정을 다 마칠 때, 상승하는 생애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세계의 이 아이들이 **하보나** 모험을 분명하게 거부하면, 죽음이 그들의 보호관찰 생애를 자동으로 종결시킨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받는 일이 없으며; 그렇게 두 번째로 죽은 후에는 결코 부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뿐이다.

그러나 **낙원**으로 가는 완전성 경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첫 맨션 세계로 옮겨질 준비가 즉시 갖춰지며, 거기서 그들 가운데 다수는 **하보나**로 상승하는 자기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도착한다. **하보나**를 통과하고 **신격**들을 달성한 후에는, 필사자에서 기원된 이 구원된 혼들은 **낙원**의 영구 상승 시민권을 갖게 된다. 필사자가 탄생되는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값지고 필수적인

every opportunity, as they are, to choose the heavenly way just as they would have made such a choice on the worlds where death so untimely terminated their careers.

47:2.3 (532.1) On the nursery world, probationary creatures are group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have Adjusters, for the Adjusters come to indwell these material children just as on the worlds of time. Children of pre-Adjuster ages are cared for in families of five, ranging in ages from one year and under up to approximately five years, or that age when the Adjuster arrives.

47:2.4 (532.2) All children on the evolving worlds who have Thought Adjusters, but who before death had not made a choice concerning the Paradise career, are also repersonalized on the finaliter world of the system, where they likewise grow up in the families of the Material Sons and their associates as do those little ones who arrived without Adjusters, but who will subsequently receive the Mystery Monitors after attaining the requisite age of moral choice.

47:2.5 (532.3) The Adjuster-indwelt children and youths on the finaliter world are also reared in families of five, ranging in ages from six to fourteen; approximately, these families consist of children whose ages are six, eight, ten, twelve, and fourteen. Any time after sixteen, if final choice has been made, they translate to the first mansion world and begin their Paradise ascent. Some make a choice before this age and go on to the ascension spheres, but very few children under sixteen years of age, as reckoned by Urantia standards, will be found on the mansion worlds.

47:2.6 (532.4) The guardian seraphim attend these youths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 world just as they spiritually minister to mortals on the evolutionary planets, while the faithful spornagia minister to their physical necessities. And so do these children grow up on the transition world until such time as they make their final choice.

47:2.7 (532.5) When material life has run its course, if no choice has been made for the ascendant life, or if these children of time definitely decide against the Havona adventure, death automatically terminates their probationary careers. There is no adjudication of such cases;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such a second death. They simply become as though they had not been.

47:2.8 (532.6) But if they choose the Paradise path of perfection, they are immediately made ready for translation to the first mansion world, where many of them arrive in time to join their parents in the Havona ascent. After passing through Havona and attaining the Deities, these salvaged souls of mortal origin constitute the permanent ascendant citizenship of Paradise. These children who have

진화 체험을 박탈당했던 이 자녀들은, **완결성취 단체**에는 모집되지 않는다.

3. 첫째 맨션 세계

맨션 세계들에서, 부활한 필사 생존자들은, 자신이 죽으면서 떠났던 바로 그 위치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유란시아**로부터 첫 맨션 세계로 갈 때, 너는 자신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음을 알아 채겠지만, 네가 좀 더 정상적이고 진취적인 시간 세계 구체(球體)에서 왔다면, 다른 몸 속에 있다는 사실; 즉 살과 피로 이뤄진 장막은 탄생했던 그 세상에 두고 왔다는 사실 외에는, 차이점을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첫 맨션 세계에서 모든 활동의 최고 중심 지역은, 부활 강당, 즉 인격이 조립되는 거대한 성전이다. 거창한 이 구조물은, 스랍 운명 수호자, **사고 조율사**, 그리고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심 집결지로 이뤄져 있다. **생명 운반자** 역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이 천상(天上)의 존재들과 함께 활동한다.

물질 수준으로부터 영적 수준으로 변환된, 필사자 정신 이력서와 유효한 피조물 기억 원형(原型)은, 분리된 **사고 조율사**의 사유물(私有物)이며; 영으로 바뀐 이런 정신 요소, 기억, 및 피조물 인격은 영구히 그런 **조율사**의 한 부분이다. 피조물의 정신 구조,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정체성 잠재력은, 스랍 운명 수호자가 보관하도록 위탁된 모론시아 혼 속에 현존한다. 스라빔에게 위탁된 모론시아 혼과 **조율사**에게 위탁된 영 정신을 다시 결합시킴으로써, 피조물 인격이 다시 조립되고, 잠자던 생존자가 부활하게 된다.

필사자에서 기원된 일시적인 인격이 그렇게 재조립되지 않는다면, 생존하지 못하게 된 그 필사 피조물의 영(靈) 요소는, 한때 내주했던 **조율사**의 전체 개별 체험 재능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영구히 존속할 것이다.

새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필사자 인종들의 부활 강당인 일곱 개의 부속건물이 방사형(放射形)으로 뻗어나가 있다. 이 구조물은 각각 시간세계의 일곱 인종 가운데 하나의 집회에 할애돼 있다. 원형(圓形)으로 된 학급 집회 강당에 붙어있는 이 일곱 부속건물 각각에는 10만 개의 개인 부활실이 있는데, 이 부활실들은 1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이 깨어나는 방으로 사용된다. 이 방들은 정상적인 **아담** 이후 세계에서 온 혼혈 인종의 인격 조립실들로 둘러싸였다. 특별한 부활 또는 섭리시대 부활과 연관되어 개별 시간 세계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법과는 상관없이, 전부 갖춘 실제 인격을 의

been deprived of the valuable and essential evolutionary experience on the worlds of mortal nativity are not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3. THE FIRST MANSION WORLD

47:3.1 (532.7) On the mansion worlds the resurrected mortal survivors resume their lives just where they left off when overtaken by death. When you go from Urantia to the first mansion world, you will notice considerable change, but if you had come from a more normal and progressive sphere of time, you would hardly notice the difference except for the fact that you were in possession of a different body; the tabernacle of flesh and blood has been left behind on the world of nativity.

47:3.2 (532.8) The very center of all activities on the first mansion world is the resurrection hall, the enormous temple of personality assembly. This gigantic structure consists of the central rendezvous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s,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archangels of the resurrection. The Life Carriers also function with these celestial beings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47:3.3 (533.1) The mortal-mind transcripts and the active creature-memory patterns as transformed from the material levels to the spiritual are the individual possession of the detached Thought Adjusters; these spiritized factors of mind, memory, and creature personality are forever a part of such Adjusters. The creature mind-matrix and the passive potentials of identity are present in the morontia soul intrusted to the keeping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s. And it is the reuniting of the morontia-soul trust of the seraphim and the spirit-mind trust of the Adjuster that reassembles creature personality and constitutes resurrection of a sleeping survivor.

47:3.4 (533.2) If a transitory personality of mortal origin should never be thus reassembled, the spirit elements of the nonsurviving mortal creature would forever continue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dividual experiential endowment of the onetime indwelling Adjuster.

47:3.5 (533.3) From the Temple of New Life there extend seven radial wings,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tal races. Each of these structures is devoted to the assembly of one of the seven races of time. There are one hundred thousand personal resurrection chambers in each of these seven wings terminating in the circular class assembly halls, which serve as the awakening chambers for as many as one million individuals. These halls are surrounded by the personality assembly chambers of the blended races of the normal post-Adamic worlds. Regardless of the technique

식하게 되는 진짜 재조립이 1_번 맨소니아의 부활 강당에서 발생된다.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감명,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그 감명을, 영원히 계속 되살리게 될 것이다.

너는 부활 강당에서 **멜기세덱** 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영구 거주지를 배정 받는다. 그 다음에 너는 10일간의 개인 자유시간을 갖는다. 너는 새로운 자기 집 바로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고, 곧 시작하게 될 계획표에 익숙해진다. 또한 너는 등록부를 들여다보고, 너보다 먼저 이 세계로 왔을지도 모를, 네가 사랑하던 사람들 및 세상에서 친구였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은 소망을 만족시킬 시간도 갖는다. 10일 동안의 자유시간이 끝날 때, 너는 **낙원**으로 가는 여행에서 둘째 걸음을 내딛는데, 맨션 세계들은 단순히 붙잡아 두는 행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훈련하는 구체이기 때문이다.

1_번 맨션 세계에서 (혹은 진보된 신분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너는 죽음 때문에 중지됐던 바로 그 수준에서, 너의 지적 훈련과 영적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행성에서 죽거나 옮겨지던 때와 맨션 세계에서 부활하는 때 사이에서, 생존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너는 이 아래에서 떠난 바로 그 수준에서, 저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

1_번 맨션 세계에서 겪는 체험 중에서 거의 전부는, 결핍된 부분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다. 붙잡아 두는 구체들 중에서 이 첫째에 도착하는 생존자는, 피조물의 성품에서 다양한 결함과 필사자 체험의 결핍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영역의 주요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 진화 세계에서 육신을 입은 삶에서 가졌던, 이런 잡다한 습성을 바로잡고 치료하는 데 집중된다.

1_번 맨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최소한 **아담** 이후 섭리시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필사 생존자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 맨션 세계 학생들은 그런 단순한 인간 발달 상태보다 훨씬 앞서 있다.

1_번 맨션 세계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면, 너는 10일이 끝날 때 옮겨지기 위한 수면{睡眠} 속으로 들어가서 2_번 세계로 나아가며, 그 후로 10일마다, 네가 배정될 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진급하게 될 것이다.

첫 맨션 세계 행정부에서 일곱 주요 원형(圓形)의 중앙은, **모론시아 동무**들의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배정된

which may be employed on the individual worlds of time in connection with special or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the real and conscious reassembly of actual and complete personality takes place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number one. Throughout all eternity you will recall the profound memory impressions of your first witnessing of these resurrection mornings.

47:3.6 (533.4) From the resurrection halls you proceed to the Melchizedek sector, where you are assigned permanent residence. Then you enter upon ten days of personal liberty. You are free to explore the immediate vicinity of your new home and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program which lies immediately ahead. You also have time to gratify your desire to consult the registry and call upon your loved ones and other earth friends who may have preceded you to these worlds. At the end of your ten-day period of leisure you begin the second step in the Paradise journey, for the mansion worlds are actual training spheres, not merely detention planets.

47:3.7 (533.5) On mansion world number one (or another in case of advanced status) you will resume your intellectual training and spiritual development at the exact level whereon they were interrupted by death. Between the time of planetary death or translation and resurrection on the mansion world, mortal man gains absolutely nothing aside from experiencing the fact of survival. You begin over there right where you leave off down here.

47:3.8 (533.6) Almost the entire experience of mansion world number one pertains to deficiency ministry. Survivors arriving on this first of the detention spheres present so many and such varied defects of creature character and deficiencies of mortal experience that the major activities of the realm are occupied with the correction and cure of these manifold legacies of the life in the flesh on the material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47:3.9 (534.1) The sojourn on mansion world number one is designed to develop mortal survivors at least up to the status of the post-Adamic dispensation on the normal evolutionary worlds. Spiritually, of course, the mansion world students are far in advance of such a state of mere human development.

47:3.10 (534.2) If you are not to be detained on mansion world number one, at the end of ten days you will enter the translation sleep and proceed to world number two, and every ten days thereafter you will thus advance until you arrive on the world of your assignment.

47:3.11 (534.3) The center of the seven major circles of the first mansion world administration is occupied by the temple of the Morontia

개인 안내자다. 이 동무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며, **사타니아**의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이들이 수백만 명 있다. 집단 동무로서 배정된 자를 제외하고, 통역관(通譯官)과 번역가(翻譯家), 건축물 관리인, 및 소풍 감독관들과 함께, 너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무들은 모두, 모론시아 몸 속에서 정신 및 영으로 된 너의 인격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일과 관련된 자들에게 아주 협조적이다.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 시작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 1,000명으로 이뤄진 중대마다 한 명의 **모론시아 동무**가 배정되지만, 일곱 맨션 구체를 통해서 진보함에 따라, 더 많은 숫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아름답고 다재다능한 이 존재들은, 사귀기 쉬운 동역자이며, 매력 있는 안내자다. 그 위성 세계들을 포함하여 어떤 과도기 문화 구체에든지, 그들은 개인 또는 선택된 집단들과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다. 그들은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의 소풍 안내자이고 여가시간 동역자다. 그들은 **예루셈**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생존자 집단과 자주 동행하며, 너희가 어느 날 거기 있더라도, 체계 수도의 등록 구역으로 갈 수 있고, 일곱 맨션 세계 전체에서 온, 상승하는 필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주거지와 체계 본부 사이를 그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여행하기 때문이다.

4. 둘째 맨션 세계

이 구체에서 너희는 맨소니아 생활에 더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모론시아 생활의 분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일하는 집단과 사회 조직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들이 공식 역할을 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새로운 사회 체제와 정부 제도를 발족시킨다.

영과 융합된 생존자가, **조울사**와 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와 공동으로, 맨션 세계들을 차지한다. 다양한 계층의 천상의 생명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친근하고 우애 있다. 어느 세계로 상승하든지, 너희는 인간의 편협성과 경솔한 신분 계층체계의 차별대우에 견줄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맨션 세계를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서, 그 세계는 진보하는 생존자들의 모론시아 활동으로 더욱 붐비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너는 맨션 세계들에 덧붙여진 **예루셈** 특색을 점점 더 인식할 것이다. 유리바다는 둘째 맨소니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 맨션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진보할 때마다, 새롭게 발전되고 알맞게 조정된 모론시아 몸을 획득하게 된다. 너는 스랍 운송체와 함께 잠자

Companions, the personal guides assigned to ascending mortals. These companions are the offspring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there are several million of them on the morontia worlds of Satania. Aside from those assigned as group companions, you will have much to do with th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the building custodians, and the excursion supervisors. And all of these companions are most co-operative with those who have to do with developing your personality factors of mind and spirit within the morontia body.

47:3.12 (534.4) As you start out on the first mansion world, one Morontia Companion is assigned to each company of one thousand ascending mortals, but you will encounter larger numbers as you progress through the seven mansion spheres. These beautiful and versatile beings are companionable associates and charming guides. They are free to accompany individuals or selected groups to any of the transition-culture spheres, including their satellite worlds. They are the excursion guides and leisure associates of all ascending mortals. They often accompany survivor groups on periodic visits to Jerusalem, and on any day you are there, you can go to the registry sector of the system capital and meet ascending mortals from all seven of the mansion worlds since they freely journey back and forth between their residential abodes and the system headquarters.

4. THE SECOND MANSION WORLD

47:4.1 (534.5) It is on this sphere that you are more fully inducted into the mansonia life. The groupings of the morontia life begin to take form; working groups and social organizations start to function, communities take on formal proportions, and the advancing mortals inaugurate new social orders and governmental arrangements.

47:4.2 (534.6) Spirit-fused survivors occupy the mansion worlds in common with the Adjuster-fused ascending mortals. While the various orders of celestial life differ, they are all friendly and fraternal. In all the worlds of ascension you will find nothing comparable to human intolerance and the discriminations of inconsiderate caste systems.

47:4.3 (534.7) As you ascend the mansion worlds one by one, they become more crowded with the morontia activities of advancing survivors. As you go forward, you will recognize more and more of the Jerusalem features added to the mansion worlds. The sea of glass makes its appearance on the second mansonia.

47:4.4 (534.8) A newly developed and suitably adjusted morontia body is acquired at the time of each advance from one mansion world to another.

게 되고, 새롭게만 발달되지 않은 몸과 함께 부활 강당에서 깨어나는데, 맨션 세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잠을 자는 동안, **사고 조율사**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 외에는, 네가 1_번 맨션 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네가 진화 세계로부터 첫 맨션 세계로 일단 옮겨진 후에는, 너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네가 모론시아 생애에서 상승하는 동안, 네 **조율사**의 기억은 완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순전히 동물적이고 완전히 물질적이었던, 머리 속에서 연상{聯想}했던 것들은 물질 너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너의 정신적 생애에서 보람 있었고 생존할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을 **조율사**가 복사했으며, 상승하는 생애 내내 끝까지 개인 기억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네가 한 맨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그리고 우주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심지어 **낙원**으로-- 나아가는 동안, 너는 보람 있는 모든 체험을 전부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모론시아 몸을 갖더라도, 너희는 이 일곱 세계 전체를 통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쉴 것이다. 너희는 모론시아 상태의 음식, 즉 물질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살아있는 에너지 계통을 섭취한다. 음식과 물은 모론시아 육체 안에서 완전히 활용되며; 남는 찌꺼기가 없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1_번 맨소니아는 매우 물질적인 구체인데, 모론시아 체제 중에서 아주 초기를 보여준다. 너는 여전히 인간에 가깝고, 필사자 생애의 제한된 관점에서 그리 멀리 옮겨지지 않았지만, 각 세계는 분명한 진보를 보여준다. 구체에서 구체로, 너는 차츰 물질적 성향이 줄어들고, 더 지적으로 바뀌며, 좀 더 영적으로 변한다. 영적 진보는 이 일곱 진보 세계 가운데 마지막 세 곳에서 가장 크게 이뤄진다.

생물학상 결핍이 첫 맨션 세계에서 주로 보상된다. 성{性} 생활, 가족 관계,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성 체형에서 있었던 결점이 거기서 교정됐거나, 아니면 **예루셈**에 있는 **물질 아들** 가족 가운데서 앞으로 조정되도록 계획된다.

2_번 맨소니아는 특히, 모든 국면의 지적 갈등을 제거하고, 온갖 종류의 정신적 부조화를 치료하도록 마련돼 있다. 첫 맨션 세계에서 시작했던, 모론시아 모타의 중요성을 숙달하려는 노력이 여기서 더 진지하게 계속된다. 2_번 맨소니아에서 이뤄지는 발전은, 이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집정관 아들** 이후 문화의 지적 상태와 비교된다.

You go to sleep with the seraphic transport and awake with the new but undeveloped body in the resurrection halls, much as when you first arrived on mansion world number one except that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leave you during these transit sleeps between the mansion worlds. Your personality remains intact after you once pas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to the initial mansion world.

47:4.5 (535.1) Your Adjuster memory remains fully intact as you ascend the morontia life. Those mental associations that were purely animalistic and wholly material naturally perished with the physical brain, but everything in your mental life which was worth while, and which had survival value, was counterparted by the Adjuster and is retained as a part of personal memory all the way through the ascendant career. You will be conscious of all your worth-while experiences as you advance from one mansion world to another and from one section of the universe to another — even to Paradise.

47:4.6 (535.2) Though you have morontia bodies, you continue, through all seven of these worlds, to eat, drink, and rest. You partake of the morontia order of food, a kingdom of living energy unknown on the material worlds. Both food and water are fully utilized in the morontia body; there is no residual waste. Pause to consider: Mansonia number one is a very material sphere, presenting the early beginnings of the morontia regime. You are still a near human and not far removed from the limited viewpoints of mortal life, but each world discloses definite progress. From sphere to sphere you grow less material, more intellectual, and slightly more spiritual. The spiritual progress is greatest on the last three of these seven progressive worlds.

47:4.7 (535.3) Biological deficiencies were largely made up on the first mansion world. There defects in planetary experiences pertaining to sex life, family association, and parental function were either corrected or were projected for future rectification among the Material Son families on Jerusalem.

47:4.8 (535.4) Mansonia number two more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 removal of all phases of intellectual conflict and for the cure of all varieties of mental disharmony. The effort to master the significance of morontia mota, begun on the first mansion world, is here more earnestly continued. The development on mansonia number two compares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of the post-Magisterial Son culture of the ideal evolutionary worlds.

5. 셋째 맨션 세계

5. THE THIRD MANSION WORLD

셋째 맨소니아는 **맨션 세계 교사**들의 본부다. 비록 그들이 일곱 맨션 구체 전체에서 활동하더라도, 3 번 세계의 학교 단지{團地} 중심에 집단 본부를 둔다. 맨션 세계들 및 더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이 교관이 수백만 명 있다. 진보되고 영화롭게 된 이 체루빔은, 맨션 세계로부터 지방우주의 상승 훈련을 맡은 마지막 구체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모론시아 선생으로서 근무한다. 작별하는 때가 가까이 올 때, 네가 기원된 우주에 --적어도 몇 세기 동안-- 작별 인사를 할 때, 네가 연방우주의 소구역에 해당하는 영접 세계들로 옮겨지기 위해 스라빔에 둘러싸일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너에게 애정 어린 고별인사를 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첫 맨션 세계에 머물 때, 너는 완결성취자들의 본부이며, 개발되지 않는 진화 자녀 양육을 위한 체계 보호관찰 육아원인, 첫째 과도기 세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네가 2_번 맨소니아에 도착하면, 2_번 과도기 세계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 **사타니아** 전체를 위한 모론시아 감독관 본부와, 다양한 모론시아 계층을 위한 훈련 학교들이 거기에 있다. 네가 3_번 맨션세계에 도착하면, 셋째 과도기 구체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즉시 부여받는데, 이 구체는 천사 계층의 본부이고, 그들의 다양한 체계 훈련 학교의 본고장이다. 이 세계로부터 **예루셈**를 방문하는 것은 점점 더 유익하며, 진보하는 필사자에게 흥미를 늘_증대시킨다.

셋째 맨소니아는, 필사자가 출생한 세계에서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이 문화 범위에 상당하는 것을 이룩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세계다. 이 구체에서는 더 긍정적인 교육 작업이 시작된다. 처음 두 맨션 세계의 훈련은 주로, 육신 속에서의 삶의 체험을 보충해야만 하는, 결핍이라는 --곧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 생존자들은 이 셋째 맨션 세계에서 자신의 잠진적 모론시아 훈련을 실제로 시작한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모론시아 모타와 필사자 논리{論理}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즉 모론시아 모타와 인간 철학을 더욱 조화시키는 데 있다.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이때 참된 형이상학에 대한 실제 통찰력을 얻는다. 이것이 시공우주의 의미와 우주 상호관계들을 지성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참된 첫 걸음이다. 셋째 맨션 세계의 문화는, 정상적인 인간거주 행성에서 증여 **아들** 이후 시대의 특징을 띤다.

6. 넷째 맨션 세계

넷째 맨션 세계에 도착할 때, 너는 이미 모론시아 생애에 잘 들어갔으며;초기의 물질 실존으로

47:5.1 (535.5) **Mansonia** the third is the headquarters of the Mansion World Teachers. Though they function on all seven of the mansion spheres, they maintain their group headquarters at the center of the school circles of world number three. There are millions of these instructors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These advanced and glorified cherubim serve as morontia teachers all the way up from the mansion worlds to the last sphere of local universe ascendant training. They will be among the last to bid you an affectionate adieu when the farewell time draws near, the time when you bid good-bye — at least for a few ages — to the universe of your origin, when you enseraphim for transit to the receiving worlds of the min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47:5.2 (535.6) When sojourning on the first mansion world, you have permission to visit the first of the transition worlds,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s and the system probationary nursery for the nurture of undeveloped evolutionary children. When you arrive on mansonia number two, you receive permission periodically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two, where are located the morontia supervisor headquarters for all Satania and the training schools for the various morontia orders. When you reach mansion world number three, you are immediately granted a permit to visit the third transition sphere, the headquarters of the angelic orders and the home of their various system training schools. Visits to Jerusem from this world are increasingly profitable and are of ever-heightening interest to the advancing mortals.

47:5.3 (536.1) **Mansonia** the third is a world of great personal and social achievement for all who have not made the equivalent of these circles of culture prior to release from the flesh on the mortal nativity worlds. On this sphere more positive educational work is begun. The training of the first two mansion worlds is mostly of a deficiency nature — negative — in that it has to do with supplementing the experience of the life in the flesh. On this third mansion world the survivors really begin their progressive morontia culture. The chief purpose of this training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orrelation of morontia mota and mortal logic, the co-ordination of morontia mota and human philosophy. Surviving mortals now gain practical insight into true metaphysics. This is the real introduction to the intelligent comprehension of cosmic meanings and universe interrelationships. The culture of the third mansion world partakes of the nature of the postbestowal Son age of a normal inhabited planet.

6. THE FOURTH MANSION WORLD

47:6.1 (536.2) When you arrive on the fourth mansion world, you have well entered upon the morontia

부터 멀리 진보해 왔다. 이제는 너에게 4_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지며, 거기서 **찬란한 저녁별**을 포함하여, 최고천사들의 본부 및 훈련 학교에 관해서 익숙하게 된다. 넷째 과도기 세계에서 이 최고천사들이 잘 주선한 덕택으로, 모론시아 방문자들은 **예루셈**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진보하는 필사자들이 본부 세계를 이렇게 반복해서 방문함에 따라, 체계 본부의 새 구역들이 그들에게 점점 더 개방되기 때문이다. 이 상승자들의 성장하는 정신에게 새로운 장관{壯觀}이 점진적으로 펼쳐진다.

넷째 맨소니아에서 각 상승자는, 모론시아 생애의 집단 작업과 학급 활동에서 자기 위치를 점점 더 적절하게 발견한다. 상승자들은 여기서 방송 및 다른 국면의 지방우주 문화와 진보를 더욱 이해하게 된다.

4_번 세계에서 훈련받는 기간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피조물의 참된 사회 생활의 요구사항과 환희를, 정말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진화하는 피조물이, 개인의 세력확장은 물론, 자기_본위의 승리에도 입각하지 않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체험이다. 새로운 사회 질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존중함으로 공감{共感}하는 의사소통, 서로 봉사하는 이타적 사랑, 그리고 최상의 공동 운명-- 곧 **낙원**을 목표로 하는 경건하고 신성한 성숙--을 실현하려는 압도적 동기에 기초를 둔 것이다. 상승자들은 모두, **하나님을_알아감**, **하나님을_드러냄**, **하나님을_추구함**, 그리고 **하나님을_발견함**을 자아_의식하게 된다.

이 넷째 세계의 지적 및 사회적 문화는, 정상으로 진화하는 행성에서 **교사 아들**_이후 시대의 정신 생활 및 사회 생활과 비교할 만하다. 영적 상태는 그런 필사자 섭리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다.

7. 다섯째 맨션 세계

다섯째 맨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모론시아 진보자 인생에서 엄청나게 전진한 발걸음에 해당한다. 이 세계에서 겪는 체험은, 정말로 **예루셈**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너는 여기서 충실하게 진화하는 세계의 고귀한 운명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런 행성 발전 기간에, 그런 세계들이 이 단계까지 진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맨션 세계의 문화는,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진화 행성에서 빛과 생명의 초기 시대의 문화와 대개 일치한다. 그리고 너는 이것에서, 이 진보된 진화 세계에 한

career; you have progressed a long way from the initial material existence. Now are you given permission to make visits to transition world number four, ther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headquarters and training schools of the superangels, including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rough the good offices of these superangels of the fourth transition world the morontia visitors are enabled to draw very close to the various orders of the Sons of God during the periodic visits to Jerusem, for new sectors of the system capital are gradually opening up to the advancing mortals as they make these repeated visits to the headquarters world. New grandeurs are progressively unfolding to the expanding minds of these ascenders.

47:6.2 (536.3) On the fourth mansonia the individual ascender more fittingly finds his place in the group working and class functions of the morontia life. Ascenders here develop increased appreciation of the broadcasts and other phases of local universe culture and progress.

47:6.3 (536.4) It is during the period of training on world number four that the ascending mortals are really first introduced to the demands and delights of the true social life of morontia creatures. And it is indeed a new experience for evolutionary creature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hich are predicated neither on personal aggrandizement nor on self-seeking conquest. A new social order is being introduced, one based on the understanding sympathy of mutual appreciation, the unselfish love of mutual service, and the overmastering motivation of the realization of a common and supreme destiny — the Paradise goal of worshipful and divine perfection. Ascenders are all becoming self-conscious of God-knowing, God-revealing, God-seeking, and God-finding.

47:6.4 (536.5)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ulture of this fourth mansion world is comparable to the mental and social life of the post-Teacher Son age on the planets of normal evolution. The spiritual status is much in advance of such a mortal dispensation.

7. THE FIFTH MANSION WORLD

47:7.1 (537.1) Transport to the fifth mansion world represents a tremendous forward step in the life of a morontia progressor. The experience on this world is a real foretaste of Jerusem life. Here you begin to realize the high destiny of the loyal evolutionary worlds since they may normally progress to this stage during their natural planetary development. The culture of this mansion world corresponds in general to that of the early era of light and life on the planets of normal evolutionary progress. And from this you can understand why it

때 거주했던, 대단히 교양 있고 진취적인 유형의 존재들이, 왜 맨션 구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체, 심지어 모든 구체를 거치지 않고 면제되도록 정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맨션 세계를 떠나기 전에 지방우주 언어를 숙달했으므로, 너는 이제, 거주권을 갖고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에, **우버사**의 방언을 완벽히 구사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는, 체계 본부로부터 **하보나**까지, 두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는 연방우주 용어를 추가하면 되는데, **낙원**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순례자들은 5_번 맨소니아에 도착하면, 상승하는 번호의 과도기 세계, 즉 **아들**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상승한 필사자는, 신성한 아들신분의 다양한 집단과 여기서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이 뛰어난 존재들에 대해 소문을 들어 왔고, **예루셈**에서 이미 만났지만, 이제는 그들을 실제로 알게 된다.

너는 다섯째 맨소니아에서 성좌 연구 세계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너는 여기서 그 다음 성좌에 체류하도록 너를 비로소 준비시킬 첫 교관을 만난다. 이런 준비는 6_번과 7_번 세계에서 더 계속되며, 한편 마무리하는 손질이,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 구역에서 더해진다.

5_번 맨소니아에서 시공우주 의식{意識}이 실제로 탄생된다. 너희는 우주에 몰두해간다. 이때는 정말로 시야가 넓어지는 시기다. **낙원**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을 완성하는 모든 존재를, 어떤 엄청난고 훌륭한, 어떤 숭고하고 신성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상승하는 필사자의 확장되는 정신에 비로소 떠오르고 있으며, 이 상승은 그토록 힘들게 그러나 몹시 기쁘고 경사스럽게 시작됐다. 이 지점에 가까워지면, 평범한 필사 상승자는 **하보나**로 상승하는 것을 진실하게 체험하려는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다. 연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이타적 봉사는 자연스러워지며, 경배는 저절로 일어난다. 참된 모론시아 성품이 싹트며; 참된 모론시아 피조물이 계속 진화한다.

8. 여섯째 맨션 세계

이 구체에 머무는 자들은 6_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하도록 허락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연방우주의 높은 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지만, 이 천상의 존재 가운데 다수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기대되는 영 생애에서 첫 수업을 받는데, 이것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훈련에서 졸업한 직후에 따라온다.

is so arranged that the highly cultured and progressive types of beings who sometimes inhabit these advanced evolutionary worlds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one or more, or even all, of the mansion spheres.

47:7.2 (537.2) Having mastered the local universe language before leaving the fourth mansion world, you now devote more time to the perfection of the tongue of Uversa to the end that you may be proficient in both languages before arriving on Jerusem with residential status. All ascending mortals are bilingual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up to Havona. And then it is only necessary to enlarge the superuniverse vocabulary, still additional enlargement being required for residence on Paradise.

47:7.3 (537.3) Upon arrival on mansonia number five the pilgrim is given permission to visit the transition world of corresponding number, the Sons' headquarters. Here the ascendant mortal becomes personally familiar with the various groups of divine sonship. He has heard of these superb beings and has already met them on Jerusem, but now he comes really to know them.

47:7.4 (537.4) On the fifth mansonia you begin to learn of the constellation study worlds. Here you meet the first of the instructors who begin to prepare you for the subsequent constellation sojourn. More of this preparation continues on worlds six and seven, while the finishing touches are supplied in the sector of the ascending mortals on Jerusem.

47:7.5 (537.5) A real birth of cosmic consciousness takes place on mansonia number five. You are becoming universe minded. This is indeed a time of expanding horizons. It is beginning to dawn upon the enlarging minds of the ascending mortals that some stupendous and magnificent, some supernal and divine, destiny awaits all who complete the progressive Paradise ascension, which has been so laboriously but so joyfully and auspiciously begun. At about this point the average mortal ascender begins to manifest bona fide experiential enthusiasm for the Havona ascent. Study is becoming voluntary, unselfish service natural, and worship spontaneous. A real morontia character is budding; a real morontia creature is evolving.

8. THE SIXTH MANSION WORLD

47:8.1 (537.6) Sojourners on this sphere are permitted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six, where they learn more about the high spirits of the superuniverse, although they are not able to visualize many of these celestial beings. Here they also receive their first lessons in the prospective spirit career which so immediately follows

보조 **체계 주권자**가 이 세계에 자주 방문하며, 여기서 우주 경영 기법의 첫 훈육이 시작된다. 한 우주의 전체 직무를 포함하는 첫 학습이 이때 주어진다.

이때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찬란한 시대이며,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과 신성한 **조율사**가 완전하게 융합되는 것을 목격한다. 잠재적인 면에서는, 이 융합이 그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다섯째 맨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여섯째에 머무는 시기까지도, 실제로 작동하는 정체성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활된 생존자들을 감독하는 최고천사, 그리고 셋째 날에 심판 받으러 나가는 자들을 위해 기록하는 천사장, 이 둘을 스랍이 호출하면,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하고 신성한 **조율사**와 결합했음을 알게 되며; 그 다음에는, 그런 생존자의 모론시아 동역자들 앞에서, 확증하는 이 사자들이 말한다: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간단한 이 예식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에서 봉사하는 영원한 생애로 들어감을 표시한다.

조율사와 융합된 것이 확정되는 즉시, 새로운 모론시아 존재는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새 이름으로 소개되며, 모든 일상 활동에서 영적으로 떠나 있는 40일을 부여받는데, 그동안 심사숙고하면서, **하보나**에 이르는 임의의 경로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고, **낙원**에 도달하는 상이한 기법들 중에서 선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찬란한 이 존재들은 여전히 다소 물질적이며; 참된 영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 오히려 초월필사자에 더 가까운데,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피조물이 돼가고 있다.

맨션 세계 학생들은, 6_번 세계에 머무는 동안, 빛과 생명의 첫 단계를 지나서 정상으로 진보한 진화 세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고양된 발전에 견줄만한 상태에 있다. 이 맨소니아에 있는 공동체의 조직은 고귀한 체제에 해당된다. 이 세계를 하나씩 상승할 때, 필사자 본성의 그림자가 점점 줄어든다. 행성의 동물에서 기원됨으로 인한 열등한 흔적이 사라짐에 따라서, 너희는 점점 더 사랑스럽게 돼간다. “큰 시련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를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매우 동정심 많고 인내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graduation from the morontia training of the local universe.

47:8.2 (538.7) The assistant System Sovereign makes frequent visits to this world, and the initial instruction is here begun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administration. The first lessons embracing the affairs of a whole universe are now imparted.

47:8.3 (538.1) This is a brilliant age for ascending mortals and usually witnesses the perfect fusion of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In potential, this fusion may have occurred previously, but the actual working identity many times is not achieved until the time of the sojourn on the fifth mansion world or even the sixth.

47:8.4 (538.2) The union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with the eternal and divine Adjuster is signalized by the seraphic summoning of the supervising superangel for resurrected survivors and of the archangel of record for those going to judgment on the third day; and then, in the presence of such a survivor's morontia associates, these messengers of confirmation speak: “This is a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This simple ceremony marks the entrance of an ascending mortal upon the eternal career of Paradise service.

47:8.5 (538.3) Immediately upon the confirmation of Adjuster fusion the new morontia being is introduced to his fellows for the first time by his new name and is granted the forty days of spiritual retirement from all routine activities wherein to commune with himself and to choose some one of the optional routes to Havona and to select from the differential techniques of Paradise attainment.

47:8.6 (538.4) But still are these brilliant beings more or less material; they are far from being true spirits; they are more like supermortals, spiritually speaking, still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But they are truly becoming marvelous creatures.

47:8.7 (538.5) During the sojourn on world number six the mansion world students achieve a status which is comparable with the exalted development characterizing those evolutionary worlds which have normally progressed beyond the initial stage of light and life. The organization of society on this mansonia is of a high order. The shadow of the mortal nature grows less and less as these worlds are ascended one by one. You are becoming more and more adorable as you leave behind the coarse vestiges of planetary animal origin. “Coming up through great tribulation” serves to make glorified mortals very kind and understanding, very sympathetic and tolerant.

9. 일곱째 맨션 세계

9. THE SEVENTH MANSION WORLD

이 구체에서 겪는 체험은, 죽음 직후의 생애에서 더할 나위 없는 업적이다. 너는 여기 머무는 동안 여러 선생의 지침을 받는데, 그들은 모두 **예루셈**에 거주하도록 너를 준비시키는 과제에 협조할 것이다. 고립되고 뒤쳐진 세계들에서 온 그런 필사자와, 더 진보되고 계몽된 구체에서 온 생존자 사이에, 모든 식별 가능한 차이점이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무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너의 불행한 유전, 유해한 환경, 그리고 행성의 비영적 경향 등의 모든 찌꺼기가 여기서 전부 제거될 것이다. “짐승의 흔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여기서 뿌리째 뽑힌다.

7_번 맨소니아에 머무는 동안, 7_번 과도기 세계, 즉 **만유의 아버지**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 더 영적인 경배, 즉 너의 긴 상승 생애 전체에 걸쳐서 네가 점점 더 실행하게 될 습관을 여기서 갖추게 된다. 너희는 이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 **아버지**의 성전을 발견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한다.

이제는 **예루셈**으로 가는 졸업반이 구성되기 시작한다. 너희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개별적으로 갔었지만, 이제는 집단을 이뤄서 **예루셈**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상승자는 지구상에서 또는 맨소니아 실행 집단에서 뒤쳐진 일원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다.

거주 신분을 갖고 **예루셈**을 향해 출발하는 너희를 보기 위해, 일곱째 맨소니아 요원들이 유리 바다에 모인다. 너희가 **예루셈**을 수백 수천 번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손님으로서 방문했으며;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전체 맨소니아 생애에 영원한 작별인사를 고하는 한 무리의 동료들과 일행이 되어, 체계 수도를 향해서 나아간 적이 전에는 너희에게 전혀 없었다. 너희는 **예루셈** 시민으로서 본부 세계의 영접광장에서 곧 환영 받을 것이다.

너희는 비물질화를 겪는 일곱 세계를 통해서 진보하는 것을 크게 즐기게 되며; 그 세계들은 실제로 불멸화{不滅化}시키는 구체다.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데, 물질적인 몸만 제거된 필사 존재, 즉 모론시아 형태--곧 육신과 피로 된 필사적 거처가 아니라, 모론시아 세계의 물질적 몸--안에 거하는 인간 정신일 뿐이었다. 너희는 **조울사**와 융합할 때 필사 상태에서 불멸 상태로 옮겨지며, 그때 **예루셈** 생애를 마치고 훌륭하게 성장한 모론시아인이 될 것이다.

10. 예루셈 시민권

47:9.1 (538.6) The experience on this sphere is the crowning achievement of the immediate postmortal career. During your sojourn here you will receive the instruction of many teachers, all of whom will co-operate in the task of preparing you for residence on Jerusem. Any discernible differences between those mortals hailing from the isolated and retarded worlds and those survivors from the more advanced and enlightened spheres are virtually obliterated during the sojourn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Here you will be purged of all the remnants of unfortunate heredity, unwholesome environment, and unspiritual planetary tendencies. The last remnants of the “mark of the beast” are here eradicated.

47:9.2 (538.7) While sojourning on mansonia number seven, permission is granted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seven, the world of the Universal Father. Here you begin a new and more spiritual worship of the unseen Father, a habit you will increasingly pursue all the way up through your long ascending career. You find the Father's temple on this world of transitional culture, but you do not see the Father.

47:9.3 (538.8) Now begins the formation of classes for graduation to Jerusem. You have gone from world to world as individuals, but now you prepare to depart for Jerusem in groups, although, within certain limits, an ascender may elect to tarry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 tardy member of his earthly or mansonia working group to catch up with him.

47:9.4 (539.1) The personnel of the seventh mansonia assemble on the sea of glass to witness your departure for Jerusem with residential status. Hundreds or thousands of times you may have visited Jerusem, but always as a guest; never before have you proceeded toward the system capital in the company of a group of your fellows who were bidding an eternal farewell to the whole mansonia career as ascending mortals. You will soon be welcomed on the receiving field of the headquarters world as Jerusem citizens.

47:9.5 (539.2) You will greatly enjoy your progress through the seven dematerializing worlds; they are really dematerializing spheres. You are mostly human on the first mansion world, just a mortal being minus a material body, a human mind housed in a morontia form — a material body of the morontia world but not a mortal house of flesh and blood. You really pass from the mortal state to the immortal status at the time of Adjuster fusion, and by the time you have finished the Jerusem career, you will be full-fledged morontians.

10. JERUSEM CITIZENSHIP

새 학급의 맨션 세계 졸업생을 영접할 때가 되면, 환영 위원회로 모이라는 신호가 온 **예루셈**에 퍼진다. 스포르나기아조차, 진화로 기원된 승리한 이 상승자들의 도착을 즐거워하는데, 그들은 행성의 인생 행로를 달려왔고, 맨션 세계의 진보를 완료했다.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만, 이 즐거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일곱째 맨션 세계로부터, 그들에게 첫 하늘나라인 **예루셈**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한 무리의 필사자가 도착하는 환상을, **계시자 요한**이 봤다. 그가 기록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며; 처음부터 그들 속에 있었던 짐승, 맨션 세계들을 통해서 남아 있었던 형상,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표시와 흔적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갖고, 필사자의 두려움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더라.” (완전하게 된 우주 통신이 이 모든 세계 위에 임재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그런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통신을 수신하기에 미숙한 모론시아 감각 기관을 직접 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충해주는 모론시아 장치다.)

바울 역시 **예루셈**에서 완성돼가는 필사자들의 상승_시민 단체를 봤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都城)으로, 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무리의 천사에게로, **미가엘**의 광대한 집회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왔다.”

필사자들이 체계 본부에서 거주지를 갖게 된 후에, 글자 그대로의 부활은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다. 맨션 세계의 생애를 떠날 때 너에게 수여된 모론시아 형태는, 지방우주 체험이 끝날 때까지 내내 너와 동행하게 될 그런 것이다. 때때로 변화가 이뤄지지만, 높아지는 교양과 영 훈련을 받는 연방우주의 여러 세계까지 옮겨지는 데 대비해서, 네가 첫 단계 영으로 떠오르면서 이 형체에 작별을 고할 때까지, 바로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맨소니아 생애 전체를 통과한 그런 필사자들은, 조정하는 잠을 자고 부활해서 깨어나는 체험을 일곱 번이나 겪는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실, 즉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방을 일곱째 맨션 세계에 남겨두고 떠났다. 어떤 형체 변화도, 더 이상 의식을 잃게 하거나, 개인의 연속되는 기억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화 세계에서 시작했고 육신 속에 살았던-- 큰 **신비 관찰자**들이 내주하고 **진리의 영**이 들어있던-- 필사자 인격은, 그런 **예루셈** 시민이 **에덴시**

47:10.1 (539.3) The reception of a new class of mansion world graduates is the signal for all Jerusem to assemble as a committee of welcome. Even the spornagia enjoy the arrival of these triumphant ascenders of evolutionary origin, those who have run the planetary race and finished the mansion world progression. Only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sent from these occasions of rejoicing.

47:10.2 (539.4) John the Revelator saw a vision of the arrival of a class of advancing mortals from the seventh mansion world to their first heaven, the glories of Jerusem. He recorded: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ose who had gained the victory over the beast that was originally in them and over the image that persisted through the mansion worlds and finally over the last mark and trace, standing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and singing the song of deliverance from mortal fear and death.” (Perfected space communication is to be had on all these worlds; and your anywhere reception of such communications is made possible by carrying the “harp of God,” a morontia contrivance compensating for the inability to directly adjust the immature morontia sensory mechanism to the reception of space communications.)

47:10.3 (539.5) Paul also had a view of the ascendant-citizen corps of perfecting mortals on Jerusem, for he wrote: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and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to the grand assembly of Michael, and to the spirits of just men being made perfect.”

47:10.4 (539.6) After mortals have attained residence on the system headquarters, no more literal resurrections will be experienced. The morontia form granted you on departure from the mansion world career is such as will see you through to the end of the local universe experience. Changes will be made from time to time, but you will retain this same form until you bid it farewell when you emerge as first-stage spirits preparatory for transit to the superuniverse worlds of ascending culture and spirit training.

47:10.5 (540.1) Seven times do those mortals who pass through the entire mansonia career experience the adjustment sleep and the resurrection awakening. But the last resurrection hall, the final awakening chamber, was left behind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No more will a form-change necessitate the lapse of consciousness or a break in the continuity of personal memory.

47:10.6 (540.2) The mortal personality initiat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tabernacled in the flesh — indwelt by the Mystery Monitors and invested by

아에 받아들여지고, **네바돈**의 모론시아 단체의 참된 구성원이라고--곧 **조울사**와 연합하는 불멸하는 생존자, **낙원** 상승자, 모론시아 상태의 인격체, 그리고 **지고자**의 참된 자녀라고-- 선포되기 전에는, 온전하게 발휘되고 실현되고 통합되지 않는다.

필사자의 죽음은, 육신을 입은 물질 생애로부터 벗어나는 한 기법이며; 교정하는 훈련과 수양하는 교육을 받는 일곱 세계를 거쳐 진보하면서 사는 맨소니아 체험은, 필사 생존자가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진화하는 물질 실존과, 영원성의 문 앞에 서게 돼있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자들의 고귀한 영 달성,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과도기 인생이다.

[**찬란한 저녁별**이 후원했음]

the Spirit of Truth — is not fully mobilized, realized, and unified until that day when such a Jerusem citizen is given clearance for Edentia and proclaimed a true member of the morontia corps of Nebadon — an immortal survivor of Adjuster association, a Paradise ascender, a personality of morontia status, and a true child of the Most Highs.

47:10.7 (540.3) Mortal death is a technique of escape from the material life in the flesh; and the mansonia experience of progressive life through seven worlds of corrective training and cultural education represents the introduction of mortal survivors to the morontia career, the transition life which intervenes between the evolutionary material existence and the higher spirit attainment of the ascenders of time who are destined to achieve the portals of eternity.

47:10.8 (540.4) [Sponsor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제48편. 모론시아 생애

⇨ 047

유랜시아 책

049 ⇨

II 부. 지방우주

제48편
모론시아 생애

섹션

소개

1. 모론시아 물질
2.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3. 모론시아 동무
4. 회고 지휘자
5. 맨션 세계 선생
6. 모론시아 세계 스라빔--과도기 사역자
7. 모론시아 모타
8. 모론시아 진보자

소개

하나님들은, 거친 동물 본성을 가진 피조물을, 어떤 신비스런 창조적 마술 행위로, 완전해진 영으로 변형시키실 수 없다--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창조주**들이 완전한 존재를 산출하기를 바랄 때, 그들은 직접 원본을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하지만, 동물에서 기원되는 피조물과 물질 피조물을, 단번에 완전한 존재로 전환시키는 일에는 결코 손대지 않는다.

지방우주 생애에서 가지각색의 단계로 연속되는 모론시아 생애는, 물질 필사자가 영 세계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로다. 물질 육체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죽음이, 무슨 마술을 부려서, 그렇게 단번에, 필사의 물질 정신을 완전하게 된 불멸하는 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믿음은 무식한 미신, 또는 재미있는 우화에 불과하다.

필사 상태와, 생존하는 인간이 나중에 얻는 영{靈} 신분 사이에는, 이 모론시아 과도기가 항상 끼어있다. 우주 진보에서 이 중간 상태는, 다양한 지방 창조계마다 현저히 다르지만, 의도와 목적에

PAPER 48
THE MORONTIA LIFE

SECTIONS

Introduction

1. Morontia Materials
2. Morontia Power Supervisors
3. Morontia Companions
4. The Reversion Directors
5. The Mansion World Teachers
6. Morontia World Seraphim — Transition Ministers
7. Morontia Mota
8. The Morontia Progressors

INTRODUCTION

48:0.1 (541.1) THE Gods cannot — at least they do not — transform a creature of gross animal nature into a perfected spirit by some mysterious act of creative magic. When the Creators desire to produce perfect beings, they do so by direct and original creation, but they never undertake to convert animal-origin and material creatures into beings of perfection in a single step.

48:0.2 (541.2) The morontia life, extending as it does over the various stages of the local universe career, is the only possible approach whereby material mortals could attain the threshold of the spirit world. What magic could death, the natural dissolution of the material body, hold that such a simple step should instantly transform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into an immortal and perfected spirit? Such beliefs are but ignorant superstitions and pleasing fables.

48:0.3 (541.3) Always this morontia transition intervenes between the mortal estate and the subsequent spirit status of surviving human beings. This intermediate state of universe

서는 모두 매우 비슷하다. **네바돈**에 있는 맨션 세계와 상급{上級} 모론시아 세계들의 배열은, **오르본톤**의 이 지역에서 모론시아 과도기 체제를 상당히 대표한다.

1. 모론시아 물질

모론시아 영역은, 피조물이 실존하는 물질 수준과 영적 수준 사이를 연결하는, 지방우주 구체들이다. 이 모론시아 생애는 **행성 왕자**의 초기 시대부터 **유란시아**에 알려졌다. 필사자들은 이 과도기 상태를 때때로 배워 왔으며, 그 개념은 왜곡된 형태로 오늘날 종교에 자리잡고 있다.

모론시아 구체들은, 필사자가 지방우주의 진보하는 세계들을 거쳐서 상승하는 과도기 국면에 해당한다.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구체를 둘러싼 일곱 세계만을 맨션 세계라고 부르지만, 성좌 및 우주 본부를 둘러싼 높은 구체들과 함께, 56개의 체계 과도기 거주지{居住地} 전체를, 공통적으로 모론시아 세계라고 부른다. 이 창조계는 지방우주 본부 구체들의 물리적 아름다움과 모론시아의 웅장함을 공유한다.

이 세계들은 모두 건축양식 구체이며, 진화된 행성에 있는 원소의 숫자보다 꼭 두 배를 갖고 있다. 주문{注文}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세계들은, 100개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어서, 중금속과 수정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물질**이라고 불리는, 정확하게 100가지 형태의 독특한 에너지 조직을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다. **총괄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기초 물질 단위의 공전주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동시에, 이 에너지 결합을 변형시켜서, 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지역 체계에서 초기 모론시아 생애는 너희의 현재 물질 세계의 것과 매우 흡사한데, 성좌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물리적 성향이 줄어들고 더 참된 모론시아 성향이 늘어난다. 그리고 **살빙톤** 구체들로 진보함에 따라서, 너희는 점점 더 영적 수준에 도달한다.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물질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의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하는 영이 겹쳐지도록 허용하는 모론시아 형태의 물질화를 일으킨다. 네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생애를 거치는 동안, 끈기 있고 능숙한 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570가지 모론시아 몸을 너에게 연속으로 제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각각 너의 점진적 변형의 한 국면이다. 네가 물질 세계를 떠날 때부터 **살빙톤**에서 첫 단계 영으로 구성될 때까지, 너는 별개의 상승하는 모론시아 변화를 정확하게 570번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

progress differs markedly in the various local creations, but in intent and purpose they are all quite similar. The arrangement of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in Nebadon is fairly typical of the morontia transition regimes in this part of Orvonton.

1. MORONTIA MATERIALS

48:1.1 (541.4) The morontia realms are the local universe liaison spheres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levels of creature existence. This morontia life has been known on Urantia since the early days of the Planetary Prince. From time to time this transition state has been taught to mortals, and the concept, in distorted form, has found a place in present-day religions.

48:1.2 (541.5) The morontia spheres are the transition phases of mortal ascension through the progression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Only the seven worlds surrounding the finaliters' sphere of the local systems are called mansion worlds, but all fifty-six of the system transition abodes, in common with the higher spheres around the constellations and the universe headquarters, are called morontia worlds. These creations partake of the physical beauty and the morontia grandeur of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spheres.

48:1.3 (541.6) All of these worlds are architectural spheres, and they have just double the number of elements of the evolved planets. Such made-to-order worlds not only abound in the heavy metals and crystals, having one hundred physical elements, but likewise have exactly one hundred forms of a unique energy organization called *morontia materia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le so to modify the revolutions of the primary units of matter and at the same time so to transform these associations of energy as to create this new substance.

48:1.4 (542.1) The early morontia life in the local systems is very much like that of your present material world, becoming less physical and more truly morontial on the constellation study worlds. And as you advance to the Salvington spheres, you increasingly attain spiritual levels.

48:1.5 (542.2)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le to effect a union of material and of spiritual energies, thereby organizing a morontia form of materialization which is receptive to the superimposition of a controlling spirit. When you traverse the morontia life of Nebadon, these same patient and skillful Morontia Power Supervisors will successively provide you with 570 morontia bodies, each one a phase of your progressive transformation. From the time of leaving the material worlds until you are constituted a first-

중에서 여덟 번은 체계에서, 일흔한 번은 성좌에서, 그리고 사백아흔한 번은 **살빙톤** 구체들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다.

필사자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신성한 영이 거의 별개의 존재로서 너에게 내주한다--실제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증여한 영이 사람에게 침투한다. 그러나 모론시아 생애에서는 그 영이 네 인격의 진짜 일부분이 될 것이며, 570번의 점진적 변형을 연달아 거치는 동안, 너는 피조물 생애의 물질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올라간다.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들이 실존함을, 그리고 모론시아 물질이 실체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하늘에서 더 낮고 더 영속적인 실체를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축하고 만드신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모론시아 물질은 실재하고 글자 그대로다. 그리고 기묘한 이 구체들은 각각, “더 좋은 나라, 즉 하늘의 나라다.”

2.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독특한 이 존재들은 오로지, 영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 또는 약간물질 에너지의 실용적 조합을 나타내는 그런 활동에 대한 감독에만 관여한다. 그들은 오로지 모론시아 진보 사역에만 몰두한다. 과도기 체험을 겪는 동안 필사자들에 대한 사역만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보하는 모론시아 피조물을 위해서 과도기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에서 모론시아 국민들을 지탱하고 활기를 돋우는 모론시아 동력의 경로(經路)다.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다양한 지방 창조계에서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름에도, 설계상으로는 제법 표준화 돼있다. 그들은 자신의 특유한 역할을 위해서 창조됐으며, 책무를 수행하기 전에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첫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을 창조하는 일은, 지방우주의 첫 모론시아 세계들 중에서 어느 한 세계의 기술에 첫 필사 생존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이뤄진다. 그들은 1,000명씩 무리지어 창조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회로 제어자**{制御者} ----- 400.
2. **체계 조정자** ----- 200.
3. **행성 관리인** ----- 100.
4. **조합된 통제관** ----- 100.
5. **연락 안정자** ----- 100.

stage spirit on Salvington, you will undergo just 570 separate and ascending morontia changes. Eight of these occur in the system, seventy-one in the constellation, and 491 during the sojourn on the spheres of Salvington.

48:1.6 (542.3) In the days of the mortal flesh the divine spirit indwells you, almost as a thing apart — in reality an invasion of man by the bestowed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But in the morontia life the spirit will become a real part of your personality, and as you successively pass through the 570 progressive transformations, you ascend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estate of creature life.

48:1.7 (542.4) Paul learned of the existence of the morontia worlds and of the reality of morontia materials, for he wrote, “They have in heaven a better and more enduring substance.” And these morontia materials are real, literal, even as in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And each of these marvelous spheres is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2. MORONTIA POWER SUPERVISORS

48:2.1 (542.5) These unique beings are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e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which represent a working combination of spiritual and physical or semimaterial energies. They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ministry of morontia progression. Not that they so much minister to mortals during the transition experience, but they rather make possible the transition environment for the progressing morontia creatures. They are the channels of morontia power which sustain and energize the morontia phases of the transition worlds.

48:2.2 (542.6)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the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fairly standard in design though differing slightly in nature in the various local creations. They are created for their specific function and require no training before entering upon their responsibilities.

48:2.3 (542.7) The creation of the first Morontia Power Supervisors is simultaneous with the arrival of the first mortal survivor on the shores of some one of the first mansion worlds in a local universe. They are created in groups of one thousand, classified as follows:

- 48:2.4 (542.8) 1. Circuit Regulators... 400
- 48:2.5 (542.9) 2. System Co-ordinators.. 200
- 48:2.6 (542.10) 3. Planetary Custodians.. 100
- 48:2.7 (543.1) 4. Combined Controllers.. 100
- 48:2.8 (543.2) 5. Liaison Stabilizers... 100

6. 선택적 분류자 ----- 50.

7. 부(副) 기록원 ----- 50.

동력 감독관들은 항상 자신이 태어난 우주에서 근무한다. 오로지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이 공동으로 하는 영 활동만이 그들을 지시하지만,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자체 통치 집단이다. 그들은 지역 체계의 첫 맨션 세계에 본부를 두는데, 거기서 물리 통제관들과 및 스라빔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일하지만, 에너지를 형태화하거나 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자체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또한 그들은 때로 진화 세계들에서 임시로 임명된 사역자로서, 초물질 현상과 관련돼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거주 행성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연방우주의 고등 훈련 세계에서 활동하지도 않는데, 한 지방우주에서 모론시아 진보를 담당하는 과도기 체제에 주로 전념한다.

1. 회로 제어자. 이들은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독특한 존재이고, 모론시아 영역의 분리된 경로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며, 이 회로들은 전적으로 행성에 속하지만, 한 세계로 국한된다. 모론시아 회로들은, 과도기 세계에 있는 물리적 회로 및 영적 회로와 뚜렷이 다르고, 그것들을 보충해 주며, 심지어 **사타니아** 체계와 비슷한 체계의 맨션 세계들에 활력을 주는 데에도, 수백만 명의 이 제어자들이 필요하다.

회로 제어자들은, 물질 에너지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그 에너지가 동역자들의 통제와 규제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이 존재들은 회로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동력 발생기이기도 하다. 발전기가 대기{大氣}로부터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있는 이 모론시아 발생기들도, 편재{遍在}하는 우주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며, 모론시아 감독관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육체와 생명 활동 속으로 그 물질을 엮어 넣는다.

2. 체계 조정자.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가, 분리된 계통의 모론시아 에너지를 소유한 까닭에, 인간이 이 구체들을 상상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그러나 필사자들은, 연속되는 과도기 구체 각각에서, 식물 생명체 및 모론시아 실존에 부속되는 다른 모든 것이, 상승하는 생존자의 발전하는 영화{靈化}에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세계의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개별화 돼있으므로, 이 조정자들은, 어느 특정 집단의 관련된 구체들을 위한 실용 단위 속으로, 그런 차이 나는 여러 동력 체계를 조화시키고 혼합시키려고 활동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한 모론시아 세계에서

48:2.9 (543.3) 6. Selective Assorters....50

48:2.10 (543.4) 7. Associate Registrars...50

48:2.11 (543.5) The power supervisors always serve in their native universe. They are directed exclusively by the joint spirit activity of the Universe Son and the Universe Spirit but are otherwise a wholly self-governing group. They maintain headquarters on each of the first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where they work in close association with bo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seraphim but function in a world of their own as regards energy manifestation and spirit application.

48:2.12 (543.6) They also sometimes work in connection with supermaterial phenomena on the evolutionary worlds as ministers of temporary assignment. But they rarely serve on the inhabited planets; neither do they work on the higher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being chiefly devoted to the transition regime of morontia progression in a local universe.

48:2.13 (543.7) 1. *Circuit Regulators.* These are the unique beings who co-ordinate physical and spiritual energy and regulate its flow into the segregated channels of the morontia spheres, and these circuits are exclusively planetary, limited to a single world. The morontia circuits are distinct from, and supplementary to, both physical and spiritual circuits on the transition worlds, and it requires millions of these regulators to energize even a system of mansion worlds like that of Satania.

48:2.14 (543.8) Circuit regulators initiate those changes in material energies which render them subject to the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ir associates. These beings are morontia power generators as well as circuit regulators. Much as a dynamo apparently generates electricity out of the atmosphere, so do these living morontia dynamos seem to transform the everywhere energies of space into those materials which the morontia supervisors weave into the bodies and life activities of the ascending mortals.

48:2.15 (543.9) 2. *System Co-ordinators.* Since each morontia world has a separate order of morontia energy,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humans to visualize these spheres. But on each successive transition sphere, mortals will find the plant life and everything else pertaining to the morontia existence progressively modified to correspond with the advancing spiritization of the ascending survivor. And since the energy system of each world is thus individualized, these co-ordinators operate to harmonize and blend such differing power systems into a working unit for the associated spheres of any particular group.

48:2.16 (543.10) Ascending mortals gradually progress

다른 세계로 전진함에 따라,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서서히 진보하며; 따라서 모론시아 구체들의 상승 등급과 모론시아 형태들의 상승 등급을 규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맨션 세계 상승자들이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지나갈 때, 진보하는 세계에 있는 체계 조정자들의 수령자(受領者)들에게로, 운송 스라빔이 그들을 인도한다. 이 독특한 여러 회당에는, 땅에서_기원된 필사자를 영접하는 첫째 세계의 부활실과 비슷한 변환실(變換室)들이 70개의 방사형 부속 건물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체계 조정자들이 피조물 형태에 필요한 변화를 능숙하게 일으킨다. 이 초기 모론시아_형태의 변화는, 완성되기까지 표준시간으로 약 7일이 소요된다.

3. 행성 관리인. 맨션 구체들에서 우주 본부에서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직무에 관해서 말하자면-- 각 모론시아 세계는 70명의 수호자의 보호 속에 있다. 그들은 최고의 모론시아 권세를 갖는 지방 행성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그 구체들에 착륙하는 모든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모론시아 형태를 지을 물질을 수여하며, 상승자가 그 다음 구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를 피조물 형태에 허락한다. 너희가 맨션 세계들을 지나간 후에는, 의식을 잃을 필요 없이, 모론시아 생애의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오직 초기 변질을 겪을 때, 그리고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그리고 **하보나**에서 **낙원**으로 나중에 변환될 때에만 무의식이 수반된다.

4. 조합된 통제관. 매우 기계적인 이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모론시아 세계의 각 경영 단위 중심에 항상 자리잡고 있다. 조합된 통제관은, 물리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및 모론시아 에너지에 민감하고, 이것들과 함께 작용하며; 두 명의 체계 조정자, 네 명의 회로 제어자, 한 명의 행성 관리인, 한 명의 연락 안정자, 그리고 한 명의 부(副) 기록원 또는 한 명의 선택적 분류자가 항상 이 존재와 연합한다.

5. 연락 안정자. 이들은 그 영역의 물리적 및 영 세력과 관련된 모론시아 에너지를 제어하는 자다. 그들은, 모론시아 에너지가 모론시아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론시아 실존 조직 전체가 안정자들에게 의존한다. 그들은, 물질화가 발생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회전 속도를 낮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들의 사역에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벗어난다.

6. 선택적 분류자. 너는 모론시아 세계의 한 부류 또는 국면으로부터 다음으로 진보하는 동안에 재_조율 또는 미리_동조돼야만 되며, 네가 모

from the physical to the spiritual as they advance from one morontia world to another; hence the necessity for providing an ascending scale of morontia spheres and an ascending scale of morontia forms.

48:2.17 (543.11) When mansion world ascenders pass from one sphere to another, they are delivered by the transport seraphim to the receivers of the system co-ordinators on the advanced world. Here in those unique temples at the center of the seventy radiating wings wherein are the chambers of transition similar to the resurrection halls on the initial world of reception for earth-origin mortals, the necessary changes in creature form are skillfully effected by the system co-ordinators. These early morontia-form changes require about seven days of standard time for their accomplishment.

48:2.18 (544.1) **3. Planetary Custodians.** Each morontia world, from the mansion spheres up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is in the custody — as regards morontia affairs — of seventy guardians. They constitute the local planetary council of supreme morontia authority. This council grants material for morontia forms to all ascending creatures who land on the spheres and authorizes those changes in creature form which make it possible for an ascender to proceed to the succeeding sphere. After the mansion worlds have been traversed, you will translate from one phase of morontia life to another without having to surrender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attends only the earlier metamorphoses and the later transitions from one universe to another and from Havona to Paradise.

48:2.19 (544.2) **4. Combined Controllers.** One of these highly mechanical beings is always stationed at the center of each administrative unit of a morontia world. A combined controller is sensitive to, and functional with, physical, spiritual, and morontial energies; and with this being there are always associated two system co-ordinators, four circuit regulators, one planetary custodian, one liaison stabilizer, and either an associate registrar or a selective assorter.

48:2.20 (544.3) **5. Liaison Stabilizers.** These are the regulators of the morontia energy in association with the physical and spirit forces of the realm. They make possible the conversion of morontia energy into morontia material. The whole morontia organization of existence is dependent on the stabilizers. They slow down the energy revolutions to that point where physicalization can occur. But I have no terms with which I can compare or illustrate the ministry of such beings. It is quite beyond human imagination.

48:2.21 (544.4) **6. Selective Assorters.** As you progress from one class or phase of a morontia world to another, you must be re-keyed or

론시아 생활과의 점진적 동시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택적 분류자의 과제다.

기초 모론시아 형태의 생명과 물질은, 첫 맨션 세계부터 마지막 우주 변환 구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지만, 기능상 진보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점차 확장한다. 기본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연속해서 진보하고 영화{靈化}하는 창조에 대해서는, 이런 선택적 재조율이 너를 적응시킨다. 너희가 동일한 모론시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에도, 인격 체제에서 그런 조정은 새로 창조되는 것에 상당한다.

너는 이 검사관들의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네가 합당한 영적 성취를 등록하자마자, 그들은 네 지위가 높아졌음을 기꺼이 보증해 줄 것이다. 이런 점진적 변화는, 음식의 필요성과 수많은 다른 개인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변경과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환경에 대해 달라진 반응을 일으킨다.

선택적 분류자들은 또한, 연구, 가르침, 및 기타 기획사업의 목적을 위해 모론시아 인격체들을 분류하는 데 크게 쓸모가 있다. 그들은 일시적 연합에서 최고로 활동하게 될 자들을 자연스럽게 지명한다.

7. 부{副} 기록원. 모론시아 세계에는 자체 기록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계 고유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과제에, 영 기록원들과 연합해서 근무한다. 모든 계층의 인격체가 모론시아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물질 존재와 영 존재가 모든 모론시아 과도기 영역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너희는 모론시아 진보자로서 물질 세계 및 물질 인격체들과 완전한 접촉을 계속 이루게 되는 한편, 너희는 영 존재들을 점점 더 알아보고 그들과 사귀게 될 것이며; 모론시아 체제를 떠나게 될 때까지, **단독 사자**들 같은 고등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영을 보게 될 것이다.

3. 모론시아 동무

맨션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에 있는 이 무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10만 명씩 무리지어 창조됐으며, **네바돈**에는 현재 700억 명 이상의 이 독특한 존재가 있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봉사하기 위해 **살빙톤**에 가까운 어떤 특별한 행성에서 **멜기세덱**들에게 훈련 받으며; 중앙의 **멜기세덱** 학교 과정은 이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체계에서 가장 낮은 맨션 세계들

advance-tuned, and it is the task of the selective assorters to keep you in progressive synchrony with the morontia life.

48:2.22 (544.5) While the basic morontia forms of life and matter are identical from the first mansion world to the last universe transition sphere, there is a functional progression which gradually extends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Your adaptation to this basically uniform but successively advancing and spiritizing creation is effected by this selective re-keying. Such an adjustment in the mechanism of personality is tantamount to a new creation, notwithstanding that you retain the same morontia form.

48:2.23 (544.6) You may repeatedly subject yourself to the test of these examiners, and as soon as you register adequate spiritual achievement, they will gladly certify you for advanced standing. These progressive changes result in altered reactions to the morontia environment, such as modifications in food requirements and numerous other personal practices.

48:2.24 (544.7) The selective assorters are also of great service in the grouping of morontia personalities for purposes of study, teaching, and other projects. They naturally indicate those who will best function in temporary association.

48:2.25 (544.8) **7. Associate Registrars.** The morontia world has its own recorders, who serve in association with the spirit recorders in the supervision and custody of the records and other data indigenous to the morontia creations. The morontia records are available to all orders of personalities.

48:2.26 (545.1) All morontia transition realms are accessible alike to material and spirit beings. As morontia progressors you will remain in full contact with the material world and with material personalities, while you will increasingly discern and fraternize with spirit beings; and by the time of departure from the morontia regime, you will have seen all orders of spirit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of the higher types, such as Solitary Messengers.

3. MORONTIA COMPANIONS

48:3.1 (545.2) These hosts of the mansion and morontia worlds are the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created from age to age in groups of one hundred thousand, and in Nebadon there are at present over seventy billion of these unique beings.

48:3.2 (545.3) Morontia Companions are trained for service by the Melchizedeks on a special planet near Salvington; they do not pass through the central Melchizedek schools. In service they range

로부터 **살빙톤**의 가장 높은 연구{研究}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근무하지만, 인간거주 세계에서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반 감독 하에, 그리고 **멜기세덱**들의 직접 지휘 하에 근무한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한 지방우주에 10,000개의 본부를 --지역 체계의 첫 맨션 세계 각 곳에-- 둔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체_통치하는 계층이며, 일반적으로 지성적이고 충성스런 존재의 집단이지만;때때로 어떤 불행한 천상의 반역이 있을 때마다 타락했다고 알려져 왔다. 이 유익한 피조물 중에서 수천 명이,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이 있었던 동안에 유실됐다. 너희의 지역 체계는 현재 이 존재의 배정된 숫자를 다 채웠는데, **루시퍼** 반역으로 결손 된 부분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전부 보충됐다.

별개의 두 유형의 **모론시아 동무**가 존재하는데;한 유형은 적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사교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 그들은 남녀 피조물이 아니지만, 서로에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애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곧 인간적) 의미에서는 도저히 동무가 되지 않지만, 피조물 실존의 계층 면에서 보면 인간 종족과 아주 가깝다. 세상의 중도 피조물이 너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체루빔이고, 그 다음이 **모론시아 동무**들이다.

이 동무들은 감동적으로 애정이 깊고, 매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그들은 뚜렷한 인격을 소유하며, 너희가 맨션 세계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한 계층으로 인식하기를 배운 후에, 곧 그들의 개체성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필사자는 모두 서로 비슷하며;동시에 너희는 각자 독특하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한다.

한 지역 체계에서 이 **모론시아 동무**들의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류로부터, 그들이 하는 업무의 본질에 대한 어떤 관념을 추론할 수 있다:

1. **순례자 관리인**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과 연합할 때 특별한 임무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 동무들은 모론시아 생애 전체를 책임지며, 따라서 다른 모론시아 사역자와 과도기 사역자 전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2. **순례자를 영접하는 자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자**. 이들은 맨션 세계들에 새로 도착한 자들과 교제하는 동무다. 네가 시간세계에서 처음으로 변환을 위해 잠들었다가 첫 맨션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즉 네 육신이 죽은 후에 모론시아 생애로 들어가는 부활을 체험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너를 환영하려고 틀림없이 네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깨어나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환영 받은 때부터, 첫_단계 영으로서 지방우주를 떠나게 되는 날까지, 이 **모론시아 동무**가 항상 너와 함께

from the lowest mansion worlds of the systems to the highest study spheres of Salvington, but they are seldom encountered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serv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Sons of God and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Melchizedeks.

48:3.3 (545.4) The Morontia Companions maintain ten thousand headquarters in a local universe — on each of the first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They are almost wholly a self-governing order and are, in general, an intelligent and loyal group of beings; but every now and then, in connection with certain unfortunate celestial upheavals, they have been known to go astray. Thousands of these useful creatures were lost during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Your local system now has its full quota of these beings, the loss of the Lucifer rebellion having only recently been made up.

48:3.4 (545.5) There are two distinct types of Morontia Companions; one type is aggressive, the other retiring, but otherwise they are equal in status. They are not sex creatures, but they manifest a touchingly beautiful affection for one another. And while they are hardly companionate in the material (human) sense, they are very close of kin to the human races in the order of creature existence. The midway creatures of the worlds are your nearest of kin; then come the morontia cherubim, and after them the Morontia Companions.

48:3.5 (545.6) These companions are touchingly affectionate and charmingly social beings. They possess distinct personalities, and when you meet them on the mansion worlds, after learning to recognize them as a class, you will soon discern their individuality. Mortals all resemble one another; at the same time each of you possesses a distinct and recognizable personality.

48:3.6 (545.7) Something of an idea of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se Morontia Companions may be derived from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of their activities in a local system:

48:3.7 (545.8) 1. *Pilgrim Guardians* are not assigned to specific duties in their association with the morontia progressors. These companions are responsible for the whole of the morontia career and are therefore the co-ordinators of the work of all other morontia and transition ministers.

48:3.8 (546.1) 2. *Pilgrim Receivers and Free Associators*. These are the social companions of the new arrivals on the mansion worlds. One of them will certainly be on hand to welcome you when you awaken on the initial mansion world from the first transit sleep of time, when you experience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th of the flesh into the morontia life. And from the time you are thus formally welcomed on awakening to that day when you leave the local universe as a first-

있다.

동무는 개인에게 영구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맨션 세계 또는 그보다 높은 세계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어지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동무를 가질 수 있으며, 동무 없이 오랫동안 지낼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 이뤄지며, 또한 가능한 동무의 공급량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다.

3. 천상의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자. 친절한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에 우연히 머물게 된, 초월인간 집단의 학생 방문자 및 기타 천상의 존재들을 영접하는 일에 전념한다. 너는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달성했던 어떤 영역이든지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 방문자는, 모든 인간거주 행성, 심지어 격리된 행성도 방문할 수 있다.

4. 협조자 및 연락 지휘자. 이 동무들은, 모론시아 교제를 촉진시키기에, 그리고 혼란을 예방하기에 전념한다. 그들은 사회적 행실과 모론시아 진보를 가르치는 자인데, 상승하는 필사자들 가운데서 학습 시간 및 기타 집단 활동을 후원한다. 그들은 광대한 지역을 유지하며, 거기서 학생을 모으고 그들의 계획표를 꾸미기 위해, 때때로 천상의 기능공과 회고 지휘자들을 소집한다. 너희가 진보함에 따라서, 이 동무들과 긴밀히 접촉하게 될 것이며, 이 두 집단을 대단히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적극적인 유형의 동무와 연합할 것인가, 또는 비사교적 유형의 동무와 연합할 것인가는, 우연의 문제다.

5. 통역관과 번역관. 초기 맨소니아 생애에서, 너희는 통역관과 번역관에게 종종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 지방우주의 모든 언어를 알고 말하며; 그 영역에서 어학에 능통한 자다.

너희는 새 언어를 자동으로 습득하지는 못할 것이며; 여기서 하듯이 거기서도 한 언어를 배울 것이고, 이 훌륭한 존재들이 너희의 언어 교사가 될 것이다. 맨션 세계에서 첫 학습은 **사타니아** 방언이고, 그 다음에는 **네바돈** 언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이 방언들을 습득하는 동안, **모론시아 동무**들은 너희의 유능한 통역관 및 인내심 있는 번역관이 될 것이다. **모론시아 동무**들 중에서 누군가가 통역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서, 너희가 이 세계들 가운데 어디서든지 방문자를 만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6. 소풍 및 회고 감독관. 이 동무들은, 본부 구체로 가는, 그리고 둘러싼 과도기 문화 세계들로 가는 긴 여행을 할 때,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들은 체계의 여러 훈련 세계와 문화 세계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개별 및 집단 여행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감독한다.

stage spirit, these Morontia Companions are ever with you.

48:3.9 (546.1) Companions are not assigned permanently to individuals. An ascending mortal on one of the mansion or higher worlds might have a different companion on each of several successive occasions and again might go for long periods without one. It would all depend on the requirements and also on the supply of companions available.

48:3.10 (546.1) **3. Hosts to Celestial Visitors.** These gracious creatures are dedicated to the entertainment of the superhuman groups of student visitors and other celestials who may chance to sojourn on the transition worlds. You will have ample opportunity to visit within any realm you have experientially attained. Student visitors are allowed on all inhabited planets, even those in isolation.

48:3.11 (546.1) **4. Co-ordinators and Liaison Directors.** These companions are dedicated to the facilitation of morontia intercourse and to the prevention of confusion. They are the instructors of social conduct and morontia progress, sponsoring classes and other group activities among the ascending mortals. They maintain extensive areas wherein they assemble their pupils and from time to time make requisition on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 reversion directors for the embellishment of their programs. As you progress, you will come in intimate contact with these companions, and you will grow exceedingly fond of both groups. It is a matter of chance as to whether you will be associated with an aggressive or a retiring type of companion.

48:3.12 (546.1) **5.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During the early mansonia career you will have frequent recourse to the interpreters and the translators. They know and speak all the tongues of a local universe; they are the linguists of the realms.

48:3.13 (546.1) You will not acquire new languages automatically; you will learn a language over there much as you do down here, and these brilliant beings will be your language teachers. The first study on the mansion worlds will be the tongue of Satania and then the language of Nebadon. And while you are mastering these new tongues, the Morontia Companions will be your efficient interpreters and patient translators. You will never encounter a visitor on any of these worlds but that some one of the Morontia Companions will be able to officiate as interpreter.

48:3.14 (546.1) **6. Excursion and Reversion Supervisors.** These companions will accompany you on the longer trips to the headquarters sphere and to the surrounding worlds of transition culture. They plan, conduct, and supervise all such individual and group tours about the system worlds

7. **지역 및 건물 관리자.** 너희가 맨소니아 생애에서 진보하는 동안에, 물질 구조와 모론시아 구조조차 점점 더 완비되고 웅장해진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너희는 다른 맨션 세계에 머물 본부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도록 허락돼 있다. 이 여러 구체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다양하게 지정된 원형, 정사각형, 및 삼각형으로 된 열린 구역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다. 대다수의 맨션 세계 구조물은 지붕이 없는데, 웅장하게 건축되고 절묘하게 장식된, 울타리 친 구역이다. 건축양식 세계들에 퍼져있는 기후를 비롯해서 기타 물리적 환경들이 지붕을 전혀 필요 없게 만든다.

상승자 생애의 과도기 국면들을 관리하는 이들이, 모론시아 직무 관리에서 주권을 갖는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지존하신 분**의 실체화가 미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론시아 동무**로서 남아 있으며; 결코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체계와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착하게 되면, 맨션 세계들은 모론시아 훈련을 맡은 과도기 구체로서 작동하기를 차츰 멈추게 된다. 완결성취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훈련 체계를 점점 더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의식(意識)을 현재의 광우주 수준으로부터 미래의 바깥 우주들 수준으로 전환시키려고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갈수록 더 완결성취자들과 연합해서 활약하고, 현재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영역에서 활약하도록 돼있다.

네가 머무는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맨션 세계들에서 누리는 너의 즐거움에 이 존재들이 아마 많이 기여하게 돼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살방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과 계속 교제할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그들은 너의 생존 체험 가운데 어느 부분에도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들 없이도 **살방톤**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들을 크게 아쉬워할 것이다. 그들은 네가 지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생애 동안에 인격체가 누릴 사치품이다.

4. 회고 지휘자

기쁜 환희와 미소_비슷한 것들은 음악만큼 보편적이다. 환희와 웃음에 상당하는 모론시아 상태와 영적 상태가 있다. 상승자의 생활은, 업무와 놀이--곧 임무로부터 해체됨--에 거의 똑같이 배분된다.

천상의 휴식과 초인간적 유머는, 그것에 해당하는 인간적 유사물과 매우 다르지만, 양쪽에 속하는 어떤 형태에 우리 모두 실제로 만족하며; 이것들은, 이상적인 유머가 **유란시아**에서 너희에게

of training and culture.

48.3.15 (546.1) 7. *Area and Building Custodians.* Even the material and morontia structures increase in perfection and grandeur as you advance in the mansonia career. As individuals and as groups you are permitted to make certain changes in the abodes assigned as headquarters for your sojourn on the different mansion worlds. Many of the activities of these spheres take place in the open enclosures of the variously designated circles, squares, and triangles. The majority of the mansion world structures are roofless, being enclosures of magnificent construction and exquisite embellishment. The climatic and other physical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architectural worlds make roofs wholly unnecessary.

48.3.16 (547.1) These custodians of the transition phases of ascendant life are supreme in the management of morontia affairs. They were created for this work, and pending the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lways will they remain Morontia Companions; never do they perform other duties.

48.3.17 (547.2) As systems and universe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mansion worlds increasingly cease to function as transition spheres of morontia training. More and more the finaliters institute their new training regime, which appears to be designed to translate the cosmic consciousness from the present level of the grand universe to that of the future outer universes. The Morontia Companions are destined to function increasingly in association with the finaliters and in numerous other realms not at present revealed on Urantia.

48.3.18 (547.3) You can forecast that these beings are probably going to contribute much to your enjoyment of the mansion worlds, whether your sojourn is to be long or short. And you will continue to enjoy them all the way up to Salvington. They are not, technically, essential to any part of your survival experience. You could reach Salvington without them, but you would greatly miss them. They are the personality luxury of your ascending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4. THE REVERSION DIRECTORS

48.4.1 (547.4) Joyful mirth and the smile-equivalent are as universal as music. There is a morontial and a spiritual equivalent of mirth and laughter. The ascendant life is about equally divided between work and play — freedom from assignment.

48.4.2 (547.5) Celestial relaxation and superhuman humor are quite different from their human analogues, but we all actually indulge in a form of both; and they really accomplish for us, in our

해줄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우리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성취한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능숙하게 놀이를 후원하며, 회고{回顧} 지휘자들이 그들을 매우 훌륭하게 후원한다.

회고 지휘자를 **유란시아**에 있는 높은 유형의 익살꾼에 비유한다면, 아마 너희가 그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변화와 휴식에 대한 이 지휘자들, 즉 모론시아 및 영 영역의 고양된 유머를 지휘하는 자들의 기능에 대한 어떤 관념을 옮기려고 애쓸 때, 이것은 지극히 유치하고 어느 정도 유감스런 방법일 것이다.

영 유머를 거론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영 유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영적 농담은 결코, 열등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자의 불운을 변질시켜서 돋보이게 만들지 않는다. 또한 신성{神性}의 정의와 영광을 모독하지도 않는다. 우리 유머는, 일반적인 세 가지 인식 수준을 포함한다:

1. **추억에 잠기는 농담**. 투쟁, 갈등, 및 흔히 두려움을 체험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종종 바보스럽고 유치하게 근심했던 기억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 우리에게, 이 국면의 유머는, 과거를 기억 재료로 이용하는, 뿌리_깊지만 지속적인 역량에서 나오는데, 그 기억 재료로 오늘의 무거운 짐에 즐거움이라는 맛을 곁들이고, 달리 그 짐을 가볍게 만든다.

2. **현재의 유머**. 매우 종종 우리에게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킨 것들 대부분이, 어리석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근심 대부분이 하찮은 것임을 깨닫는 기쁨. 우리가 미래의 확실성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근심거리를 최대한 무시할 수 있을 때, 이 국면의 유머를 가장 고마워한다.

3. **예언적 기쁨**. 이 국면의 유머를 상상하는 것이 필사자에게는 아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필사자뿐 아니라 영들과 모론시아인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으로 특이한 만족감을 얻는다. 천상의 유머의 이런 관점은, 우리의 상관{上官}들이 애정으로 보살피고, 우리의 **최상급 지휘자**들의 신성이 불변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온다.

그러나 그 영역의 회고 지휘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지성 존재의 고상한 유머를 묘사하기에만 전념하지는 않으며; 기본 전환, 즉 영적 오락과 모론시아 여흥{餘興}을 지도하는 데에도 또한 몰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맥락에서 천상의 기능 공들과 긴밀하게 협동한다.

회고 지휘자들 자신은, 창조된 무리가 아니며; **하보나** 원주민부터, 아래로 공간에 있는 사자{使者} 무리와 시간세계의 사역하는 영들, 그리고 진화 세계에서 온 모론시아 진보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존재를 포함하는, 모집된 단체다. 모두가 지원자이며, 사고{思考}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휴식

state, just about what ideal humor is able to do for you on Urantia. The Morontia Companions are skillful play sponsors, and they are most ably supported by the reversion directors.

48.4.3 (547.6) You would probably best understand the work of the reversion directors if they were likened to the higher types of humorists on Urantia, though that would be an exceedingly crude and somewhat unfortunate way in which to try to convey an idea of the function of these directors of change and relaxation, these ministers of the exalted humor of the morontia and spirit realms.

48.4.4 (547.7) In discussing spirit humor, first let me tell you what it is *not*. Spirit jest is never tinged with the accentuation of the misfortunes of the weak and erring. Neither is it ever blasphemous of the righteousness and glory of divinity. Our humor embraces three general levels of appreciation:

48.4.5 (547.8) 1. *Reminiscent jests*. Quips growing out of the memories of past episodes in one's experience of combat, struggle, and sometimes fearfulness, and oftentimes foolish and childish anxiety. To us, this phase of humor derives from the deep-seated and abiding ability to draw upon the past for memory material with which pleasantly to flavor and otherwise lighten the heavy loads of the present.

48.4.6 (548.1) 2. *Current humor*. The senselessness of much that so often causes us serious concern, the joy at discovering the unimportance of much of our serious personal anxiety. We are most appreciative of this phase of humor when we are best able to discount the anxieties of the present in favor of the certainties of the future.

48.4.7 (548.2) 3. *Prophetic joy*. It will perhaps be difficult for mortals to envisage this phase of humor, but we do get a peculiar satisfaction out of the assurance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 for spirits and morontians as well as for mortals. This aspect of celestial humor grows out of our faith in the loving overcare of our superiors and in the divine stability of our Supreme Directors.

48.4.8 (548.3) But the reversion directors of the realms are not concerned exclusively with depicting the high humor of the various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they are also occupied with the leadership of diversion, spiritual recreation and morontia entertainment. And in this connection they have the hearty co-operation of the celestial artisans.

48.4.9 (548.4) The reversion directors themselves are not a created group; they are a recruited corps embracing beings ranging from the Havona natives down through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o the morontia progressors from the evolutionary

을 맛보게 하려고 자기 동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데, 이는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기에 그런 태도가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지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지나간 시절과 시대에 행한 것들을 되새겨 볼 때 유쾌한 기쁨이 있다. *인중이나 계층에서 초기에 체험한 것을 추억하면 편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술가들이 회고 지휘자라고 불리는 정확한 이유다--그들은 예전의 발달 상태 또는 어설픈 상태의 존재였던 것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도록 돕는다.

모든 존재가 이런 종류의 기분전환을 즐기지만, 예외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창조주**이고, 따라서 자동으로 스스로 **활력**을 되찾는 자들,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유형의 피조물, 즉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 같은 자들이며, 이들의 반응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철저하게 사무적이다. 기능적 의무로 긴장했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온갖 우주 전역의 모든 세계에서 생애 가운데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낙원 섬**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 거주지의 토착 존재들은 지칠 수 없고, 그래서 재충전과 관계없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 완전성에 속하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되돌아볼 진화 체험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비교적 낮은 실존 단계를 통해서, 또는 우리 계층의 점진적인 여러 수준을 통해서 올라왔으며, 우리가 초기에 체험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상쾌한 일이고 어느 정도 즐거운 일이다. 자신의 계층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큼 정신이 소유한 것을 숙고하면 편안해진다. 앞날은 갈등과 발전을 의미하며; 일, 노력, 및 성취를 예시하지만; 지난날은 이미 정복하고 성취한 것들의 맛을 풍기며; 지난날을 숙고하는 것은, 휴식과 그런 근심 없는 재음미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 환희와 흥겨움에 가까운 모른시아 정신 상태를 자극한다.

심지어 필사자의 유머도, 자신이 현재 도달한 발달 상태보다 바로 밑에 있는 자들에게 감동 주는 사건을 묘사할 때, 또는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흔히 겪는 체험을,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겪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묘사할 때, 가장 건전하다. **유란시아** 출신인 너희는, 저속하고 고약한 많은 것을 너희의 유머라고 혼동하도록 내버려뒀지만, 비교적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축하 받을 만하다. 너희 인종들 가운데 일부는 풍부한 유머 기질을 가졌고, 이로 인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크게 도움을 받는다. 너희는, 유머에 있어서 **아담**의 유산으로부터 많이, 음악이나 예술이 얻은 것보다는 훨씬

worlds. All are volunteers, giving themselves to the work of assisting their fellows in the achievement of thought change and mind rest, for such attitudes are most helpful in recuperating depleted energies.

48.4.10 (548.5) When partially exhausted by the efforts of attainment, and while awaiting the reception of new energy charges, there is agreeable pleasure in living over again the enactments of other days and ages.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race or the order are restful to reminisce.* And that is exactly why these artists are called reversion directors — they assist in reverting the memory to a former state of development or to a less experienced status of being.

48.4.11 (548.6) All beings enjoy this sort of reversion except those who are inherent Creators, hence automatic self-rejuvenators, and certain highly specialized types of creatures, such as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who are always and eternally thoroughly businesslike in all their reactions. These periodic releases from the tension of functional duty are a regular part of life on all world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not on the Isle of Paradise. Beings indigenous to the central abode are incapable of depletion and are not, therefore, subject to re-energizing. And with such beings of eternal Paradise perfection there can be no such reversion to evolutionary experiences.

48.4.12 (548.7) Most of us have come up through lower stages of existence or through progressive levels of our orders, and it is refreshing and in a measure amusing to look back upon certain episodes of our early experience. There is a restfulness in the contemplation of that which is old to one's order, and which lingers as a memory possession of the mind. The future signifies struggle and advancement; it bespeaks work, effort, and achievement; but the past savors of things already mastered and achieved; contemplation of the past permits of relaxation and such a carefree review as to provoke spirit mirth and a morontia state of mind verging on merriment.

48.4.13 (548.8) Even mortal humor becomes most hearty when it depicts episodes affecting those just a little beneath one's present developmental state, or when it portrays one's supposed superiors falling victim to the experiences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supposed inferiors. You of Urantia have allowed much that is at once vulgar and unkind to become confused with your humor, but on the whole, you are to be congratulated on a comparatively keen sense of humor. Some of your races have a rich vein of it and are greatly helped in their earthly careers thereby. Apparently you received much in the way

원 더 많이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

사타니아 전체는, 노는 시간에, 거기 거주하는 자들이 낮은 단계에서 실존하던 때의 기억을 참신하게 소생시킬 때, **유란시아**에서 온, 회고 지휘자 단체의 유쾌한 유머를 듣고 사기가 오른다. 가장 어려운 임무에 임할 때에도, 우리는 천상의 유머 감각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도할 만큼 자신을 중요시여기지 않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각 조직의 심각한 임무에서 풀려났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너희가 “재미있게 지내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제멋대로 유머에 빠지지 않는 다.

우리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도록 유혹 받을 때, 멈춰서 우리 **조물주**들이 무한히 위대하고 위엄있다는 것을 숙고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를 찬미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심지어 우스꽝스런 일에 가까울 것이다. 유머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덜 심각하게 만들도록 우리 모두를 돕는 것이다. *유머는, 자아 찬양이라는 독성에 대한 신이 주신 해독제다.*

긴장을 완화하고 유머로 기분을 전환시킬 필요는, 상승하는 그런 존재 계층에서 가장 큰데, 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쓸 때 지속적인 긴장감에 휩싸인다. 양극단의 생애는 유머로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거의 없다. 원시인은 유머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낙원**에서 완비된 존재는 유머가 필요 없다. **하보나**의 무리는 선천적으로 지극히 행복한 인격을 지니, 유쾌하고 상쾌한 회중(會衆)이다. **낙원**에서는, 경배의 우수성 때문에, 회고 활동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낙원** 완전성이라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회고 지휘자들의 사역이 큰 역할을 한다.

필사자 종족은, 수준이 높을수록 긴장감이 더 크고, 유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머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더 커진다. 영 세계에서는 그 반대인데: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회고 체험으로 기분전환할 필요가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영 생명체의 등급이 **낙원**으로부터 스랍 무리에 이르기까지 낮아질수록, 유쾌하게 만드는 사명과 명랑하게 만드는 사역이 더 필요해진다. 전에 체험했던 지적 상태를 이따금 회고함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존재는, 높은 유형의 인간 종족, 모론시아인, 천사, 및 **물질 아들**들이며, 비슷한 유형의 모든 인격체도 그렇다.

유머는, 발전적 진보와 고귀한 성취를 위한 격렬한 갈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자아를 성찰하는 단조로움 때문에 지나친 압박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장치로서 작용해야 한다. 또한 유머는, 사실 또는 진리의 예기치 못한 영향, 즉 고정되고 유연성 없는 사실과, 늘 생생한 융통성 있는 진리가, 예기치 못하게 영향을 끼침으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of humor from your Adamic inheritance, much more than was secured of either music or art.

48:4.14 (549.1) All Satania, during times of play, those times when its inhabitants refreshingly resurrect the memories of a lower stage of existence, is edified by the pleasant humor of a corps of reversion directors from Urantia. The sense of celestial humor we have with us always, even when engaged in the most difficult of assignments. It helps to avoid an overdevelopment of the notion of one's self-importance. But we do not give rein to it freely, as you might say, "have fun," except when we are in recess from the serious assignments of our respective orders.

48:4.15 (549.2) When we are tempted to magnify our self-importance, if we stop to contemplate the infinity of the greatness and grandeur of our Makers, our own self-glorification becomes sublimely ridiculous, even verging on the humorous. One of the functions of humor is to help all of us take ourselves less seriously. *Humor is the divine antidote for exaltation of ego.*

48:4.16 (549.3) The need for the relaxation and diversion of humor is greatest in those orders of ascendant beings who are subjected to sustained stress in their upward struggles. The two extremes of life have little need for humorous diversions. Primitive men have no capacity therefor, and beings of Paradise perfection have no need thereof. The hosts of Havona are naturally a joyous and exhilarating assemblage of supremely happy personalities. On Paradise the quality of worship obviates the necessity for reversion activities. But among those who start their careers far below the goal of Paradise perfection, there is a large place for the ministry of the reversion directors.

48:4.17 (549.4) The higher the mortal species, the greater the stress and the greater the capacity for humor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it. In the spirit world the opposite is true: The higher we ascend, the less the need for the diversions of reversion experiences. But proceeding down the scale of spirit life from Paradise to the seraphic host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mission of mirth and the ministry of merriment. Those beings who most need the refreshment of periodic reversion to the intellectual status of previous experiences are the higher types of the human species, the morontians, angels, and the Material Sons, together with all similar types of personality.

48:4.18 (549.5) Humor should function as an automatic safety valve to prevent the building up of excessive pressures due to the monotony of sustained and serious self-contempl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intense struggle for developmental progress and noble achievement. Humor also functions to lessen the shock of the unexpected impact of fact or of truth, rigid

다. 필사 인격체는, 다음에 무엇을 만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그 본질이 사실이든지 또는 진실이든지, 유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즉 요점을 찾아내서 간파한다.

유란시아의 유머는 대단히 미숙하고 지극히 예술적이지 못하지만, 일종의 건강 보험으로서, 그리고 감정적 압박감의 치료제로서 귀중한 목적에 이바지하며, 그리하여 해로운 신경과민과 지나치게 심각한 자아_성찰을 예방한다. 유머와 놀이는--곧 휴식은-- 긴축적 노력에서 생기는 반응이 아니며;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지난날을 회고함으로 생기는 반응이다. **유란시아**에서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렇듯이, 너희는 더 새롭게 더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노력하는 수고를 잠시 멈추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좀 더 단순한 일로 돌아갈 때, 너희는 항상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란시아인의 놀이 생활의 원칙은 철학적으로 건전하며, 너희의 상승하는 생애 내내, **하보나** 회로들을 통해서 **낙원**의 영원한 기슭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너희는 상승하는 존재로서, 과거에 낮은 실존이었을 때의 개인적 기억을 모두 간직하며, 그런 지난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필사자의 웃음이든지 모론시아 환희든지, 현재의 유머가 성립될 토대가 전혀 없을 것이다. 현재의 기분 전환과 오락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의 체험에 대한 이 회상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긴 모론시아 생애와, 그 다음의 점점 영적으로 바뀌는 생애를 통해서 꼭대기까지, 너희는 이 세상의 유머에 해당하는 천상의 유머를 즐길 것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인격의 영원한 일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바로 그 부분은(곧 **조율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즐거운 표현, 심지어 영적 웃음소리에 신성의 울림을 더해준다.

unyielding fact and flexible ever-living truth. The mortal personality, never sure as to which will next be encountered, through humor swiftly grasps — sees the point and achieves insight — the unexpected nature of the situation be it fact or be it truth.

48:4.19 (549.6) While the humor of Urantia is exceedingly crude and most inartistic, it does serve a valuable purpose both as a health insurance and as a liberator of emotional pressure, thus preventing injurious nervous tension and overserious self-contemplation. Humor and play — relaxation — are never reactions of progressive exertion; always are they the echoes of a backward glance, a reminiscence of the past. Even on Urantia and as you now are, you always find it rejuvenating when for a short time you can suspend the exertions of the newer and higher intellectual efforts and revert to the more simple engagements of your ancestors.

48:4.20 (550.1) The principles of Urantian play life are philosophically sound and continue to apply on up through your ascending life, through the circuits of Havona to the eternal shores of Paradise. As ascendant beings you are in possession of personal memories of all former and lower existences, and without such identity memories of the past there would be no basis for the humor of the present, either mortal laughter or morontia mirth. It is this recalling of past experience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present diversion and amusement. And so you will enjoy the celestial equivalents of your earthly humor all the way up through your long morontia, and then increasingly spiritual, careers. And that part of God (the Adjuster) which becomes an eternal part of the personality of an ascendant mortal contributes the overtones of divinity to the joyous expressions, even spiritual laughter,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and space.

5. 맨션 세계 선생

맨션 세계 선생들은, 사람으로부터 떠났지만 영화롭게 된 체루빔과 사노빔의 단체다. 시간세계의 순례자가, 공간의 시험 세계로부터, 맨션 세계 및 그에 관련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로 나아갈 때, 그의 개인 또는 집단 스라빔, 즉 운명 수호자가 그와 동행한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스라빔이 체루빔 및 사노빔의 훌륭한 도움을 받지만; 필사 피보호자가 육신의 숙박에서 해방되어 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할 때, 물질 이후의 인생, 즉 모론시아 인생이 시작될 때, 동행하던 스라빔은 자신의 이전{以前} 부관들, 즉 체루빔과 사노빔의 보살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역하는 스라빔으로부터 분리된 이 보좌관

5. THE MANSION WORLD TEACHERS

48:5.1 (550.2) The Mansion World Teachers are a corps of deserted but glorified cherubim and sanobim. When a pilgrim of time advances from a trial world of space to the mansion and associated worlds of morontia training, he is accompanied by his personal or group seraphim, the guardian of destiny. In the worlds of mortal existence the seraphim is ably assisted by cherubim and sanobim; but when her mortal ward is delivered from the bonds of the flesh and starts out on the ascendant career, when the postmaterial or morontia life begins, the attending seraphim has no further need of the ministrations of her former lieutenants, the cherubim and sanobim.

48:5.2 (550.3) These deserted assistants of the ministering seraphim are often summoned to

들은 종종 우주 본부로 소환되는데, 거기서 **우주 어머니 영**의 친밀한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맨션 세계 선생**으로서 체계 훈련 구체들로 나아간다. 이 선생들은 물질 세계를 종종 방문하며, 가장 낮은 맨션 세계에서 시작하여, 우주 본부와 연결된 가장 높은 교육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줄곧 활동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사역하는 스라빔과 연합해서 일하던 예전 업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

사타니아에는 이 선생들이 수십억 명 있고,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스라빔이 **조울사**와 융합된 필사자와 함께 안쪽으로 진행할 때, 체루빔과 사노빔은 둘 다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다른 교관들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들이 **맨션 세계 선생**들을 임명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론시아 동무**들의 감독을 받지만, 개인으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교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 또는 구체의 대리 우두머리의 감독을 받는다.

진보된 이 체루빔은, 자신이 스라빔에게 배속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개 쌍으로 일한다. 그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론시아 유형의 실존에 매우 가까우며,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선천적으로 동정심 많은 선생이고, 맨션 세계 및 모론시아 교육 체계의 과정을 아주 유능하게 운영한다.

모론시아 생활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 선생들은, 개인, 집단, 학급, 및 대규모 교육에 임한다. 맨션 세계에서 그런 학교들은, 각각 100개의 부서로 이뤄진 세 개의 일반 집단으로 조직돼 있는데: 사고{思考}하는 학교, 느끼는 학교, 행하는 학교 등이다. 너희가 성좌에 도달할 때, 윤리 학교, 경영 학교, 및 사회 적응 학교가 더해진다.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너희는, 철학, 신성{神性}, 및 순수 영성{靈性}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지구에서 배울 수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너희는 이 신실하고 인내심 많은 선생들의 지도 아래서 반드시 획득할 것이다. **낙원**에 이르는 왕도{王道}, 지름길, 또는 쉬운 길은 없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다른 구체로 진행하기 전에 한 구체의 과정을 숙달할 것이며; 적어도 너희가 태어난 그 세계를 일단 떠난 후에는 이것이 진실이다.

모론시아 생애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꾸물거림, 얼버무림, 불성실, 문제 기피, 불공정함, 그리고 한가하기를 추구함 같은, 남아있는 짐승의 흔적을 필사 생존자들로부터 영구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맨소니아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린 모론시아 학생들은, 연기{延期}한다고 해서 결코 기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배우게 된다. 육신

universe headquarters, where they pass into the intimate embrac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then go forth to the system training spheres as Mansion World Teachers. These teachers often visit the material worlds and function from the lowest mansion worlds on up to the highest of the educational spheres connected with the universe headquarters. Upon their own motion they may return to their former associative work with the ministering seraphim.

48:5.3 (550.4) There are billions upon billions of these teachers in Satania, and their numbers constantly increase because, in the majority of instances, when a seraphim proceeds inward with an Adjuster-fused mortal, both a cherubim and a sanobim are left behind.

48:5.4 (550.5) Mansion World Teachers, like most of the other instructors, are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They are generally supervised by the Morontia Companions, but as individuals and as teachers they are supervised by the acting heads of the schools or spheres wherein they may be functioning as instructors.

48:5.5 (550.6) These advanced cherubim usually work in pairs as they did when attached to the seraphim. They are by nature very near the morontia type of existence, and they are inherently sympathetic teachers of the ascending mortals and most efficiently conduct the program of the mansion world and morontia educational system.

48:5.6 (551.1) In the schools of the morontia life these teachers engage in individual, group, class, and mass teaching. On the mansion worlds such schools are organized in three general groups of one hundred divisions each: the schools of thinking, the schools of feeling, and the schools of doing. When you reach the constellation, there are added the schools of ethics, the schools of administration, and the schools of social adjustment.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you will enter the schools of philosophy, divinity, and pure spirituality.

48:5.7 (551.2) Those things which you might have learned on earth, but which you failed to learn, must be acquired under the tutelage of these faithful and patient teachers. There are no royal roads, short cuts, or easy paths to Paradise. Irrespective of the individual variations of the route, you master the lessons of one sphere before you proceed to another; at least this is true after you once leave the world of your nativity.

48:5.8 (551.3) One of the purposes of the morontia career is to effect the permanent eradication from the mortal survivors of such animal vestigial traits as procrastination, equivocation, insincerity, problem avoidance, unfairness, and ease seeking. The mansonia life early teaches the young morontia pupils that postponement is in no sense

속의 삶을 끝낸 후로는, 상황을 회피하는 기법 또는 달갑지 않은 책무를 우회하는 기법으로서, 시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맨션 세계 선생들은, 체류하는 구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체계와 성좌의 교육 구체들을 거쳐서 **살빙톤** 훈련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체험함으로써 진급한다.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받아들여지기 전이나 후에,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맨션 세계에 체류하는 학생들의 출생지인 그 세계에서 스라빔의 동역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미 훈련 받았다.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진보하는 이 필사자들과 함께 실제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동정심 많은 선생, 즉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교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안내자다. 그들은 상승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진보하는 생애의 초기 국면에서 철저히 체험했다.

이 선생들 중에서 오래된 자들 가운데 다수, 즉 **살빙톤** 회로의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용되며, 이 체루빔과 사노빔은 이 두 번째 포용에서 스라빔 신분을 지니고 떠오른다.

6. 모론시아 세계 스라빔--과도기 사역자

모든 계층의 천사는, 행성 도우미로부터 최고 스라빔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사역하는데, 과도기 사역자는 이 활동에 더 집중적으로 배정된다. 이 천사들은 스랍 봉사자 중에서 여섯째 계층이며, 그들의 사역은, 육신을 입은 생애의 생애로부터, 물질적인 필사 피조물이 일곱 맨션 세계에서 계속하여 초기 단계의 모론시아 실존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전념한다.

너희는, 혼이 잉태될 때, 즉 도덕적 상태에 도달한 피조물 정신에 영 **조울사**가 내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생애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정말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 필사자의 혼은, 필사자를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지방우주 모론시아 구체들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는다.

아무튼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 도달하기 전에는 과도기 스라빔의 사역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거기서 필사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데, 다음과 같이 일곱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다:

1. 복음전도 스라빔. 맨션 세계에서 의식을 되

avoidance. After the life in the flesh, time is no longer available as a technique of dodging situations or of circumventing disagreeable obligations.

48:5.9 (551.4) Beginning service on the lowest of the tarrying spheres, the Mansion World Teachers advance, with experience, through the educational spheres of the system and the constellation to the training worlds of Salvington. They are subjected to no special discipline either before or after their embrace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ey have already been trained for their work while serving as seraphic associates on the worlds native to their pupils of mansion world sojourn. They have had actual experience with these advancing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are practical and sympathetic teachers, wise and understanding instructors, able and efficient guides. They are entirely familiar with the ascendant plans and thoroughly experienced in the initial phases of the progression career.

48:5.10 (551.5) Many of the older of these teachers, those who have long served on the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are re-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from this second embrace these cherubim and sanobim emerge with the status of seraphim.

6. MORONTIA WORLD SERAPHIM — TRANSITION MINISTERS

48:6.1 (551.6) While all orders of angels, from the planetary helpers to the supreme seraphim, minister on the morontia worlds, the transition ministers are more exclusively assigned to these activities. These angels are of the sixth order of seraphic servers, and their ministry is devoted to facilitating the transit of material and mortal creatures from the temporal life in the flesh on into the early stages of morontia existence on the seven mansion worlds.

48:6.2 (551.7) You should understand that the morontia life of an ascending mortal is really initiated on the inhabited worlds at the conception of the soul, at that moment when the creature mind of moral status is indwelt by the spirit Adjuster. And from that moment on, the mortal soul has potential capacity for supermortal function, even for recognition on the higher levels of the morontia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

48:6.3 (552.1) You will not, however, be conscious of the ministry of the transition seraphim until you attain the mansion worlds, where they labor untiringly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mortal pupils, being assigned for service in the following seven divisions:

48:6.4 (552.2) 1. Seraphic Evangels. The moment

찾는 순간에, 너는 체계의 기록부에서 진화하는 영으로 분류된다. 정말로 너는 아직 실제 영이 아니지만, 더 이상 필사적 존재나 물질 존재도 아니며; 영이 되기 전의 생애를 시작했고, 모로시아 생애에 정식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았다.

맨션 세계들에서 복음전도 스라빔은, **에덴시아, 살빙톤, 우버사, 및 하보나**에 이르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노선 중에서 네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똑같이 제안할만한 노선이 여럿 있다면, 이것들이 네 앞에 제시될 것이며, 너는 가장 좋아 보이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때 이 스라빔은 각각의 상승하는 혼에게 가장 유리할 그 행로를, **예루셈**에 있는 24층고 자에게 추천한다.

네가 미래의 행로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미래의 영 달성에 가장 알맞도록, 과도기 사역자들과 그 상관들이 현명하게 결정한, 그 한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행로가 너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너의 동료들에게 해롭지 않다면, 너의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영 세계가 통치된다.

이 복음전도 스라빔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복음, 즉 완전성 달성이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는 데 전념한다. 맨션 세계들에서 그들은 선험이 보존되고 지배한다는 대법령을 선포하는데: 어떤 선험 행위도 헛수고가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오랫동안 궤방 받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소멸된 적이 없고, 그 동기의 신성함에 비례해서 영원히 효력 있다.

심지어 **유란시아**에서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교를 고수하라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인간 선생들에게 권고한다. 과연 이 진리가 너희 세계에 선포됐다:

하나님들이 나의 보호자시니; 내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통로로, 생명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소생시키면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신성한 현존** 앞에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불확실성의 골짜기로 내려가거나, 태산같은 의심 속에서 올라갈지라도,

외롭게 행하거나 내 동료 친구들과 동행할지라도,

빛이 함창하는 승리를 거두거나 창공에 숨어 있던 곳에서 넘어지더라도,

주의 선한 영이 나를 돌보실 것이며, 주의 영광의 천사가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you consciousize on the mansion worlds, you are classified as evolving spirits in the records of the system. True, you are not yet spirits in reality, but you are no longer mortal or material beings; you have embarked upon the prespirit career and have been duly admitted to the morontia life.

48:6.5 (552.3) On the mansion worlds the seraphic evangels will help you to choose wisely among the optional routes to Edentia, Salvington, Uversa, and Havona. If there are a number of equally advisable routes, these will be put before you, and you will be permitted to select the one that most appeals to you. These seraphim then make recommendations to the four and twenty advisers on Jerusem concerning that course which would be most advantageous for each ascending soul.

48:6.6 (552.4) You are not given unrestricted choice as to your future course; but you may choose within the limits of that which the transition ministers and their superiors wisely determine to be most suitable for your future spirit attainment. The spirit world is govern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your freewill choice provided the course you may choose is not detrimental to you or injurious to your fellows.

48:6.7 (552.5) These seraphic evangels are dedica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eternal progression, the triumph of perfection attainment. On the mansion worlds they proclaim the great law of the conservation and dominance of goodness: No act of good is ever wholly lost; it may be long thwarted but never wholly annulled, and it is eternally potent in proportion to the divinity of its motivation.

48:6.8 (552.6) Even on Urantia they counsel the human teacher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o adhere to the preaching of “the goodness of God, which leads to repentance,” to proclaim “the love of God, which casts out all fear.” Even so have these truths been declared on your world:

48:6.9 (552.7) The Gods are my caretakers; I shall not stray;

48:6.10 (552.8) Side by side they lead me in the beautiful paths and glorious refreshing of life everlasting.

48:6.11 (552.9) I shall not, in this Divine Presence, want for food nor thirst for water.

48:6.12 (552.10) Though I go down into the valley of uncertainty or ascend up into the worlds of doubt,

48:6.13 (552.11) Though I move in loneliness or with the fellows of my kind,

48:6.14 (552.12) Though I triumph in the choirs of light or falter in the solitary places of the spheres,

48:6.15 (552.13) Your good spirit shall minister to me, and your glorious angel will comfort me.

비록 깊은 어둠 속으로 죽음이 있는 바로 거기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주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과 때가 이르렀음을 알기 때 문입니다.

주는 나를 높여서 저 높은 성벽 위, 주의 곁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밤중에 그 목동 소년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간직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날 기록돼 있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표현했다.

이 스라빔은 또한, 개인 상승자뿐만 아니라 전체 체계 역시 완전성을 달성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심지어 지금도 젊은 **사타니아**의 체계에서 그들의 교훈과 계획은, 맨션 세계들이 높은 곳의 구체들에 이르는 디딤돌로서 필사 상승자에게 더 이상 이바지하지 않게 될, 미래 시대들을 위한 준비를 포함한다.

2. 인종 해석자. 모든 인종의 필사 존재들은 똑같지 않다. 정말로, 주어진 한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의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본성 전체에 통용되는 **행성 원형(原型)**이 있지만; 뚜렷이 다른 인종 유형들도 있고, 매우 명확한 사회적 성향이, 서로 다른 이 기본 유형의 인간 후손의 특징을 나타낸다. 시간 세계에서는, 인종을 해석하는 스라빔이, 이 인종들의 잡다한 관점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인종 감독관들의 노력을 더 촉진시키며, 그들은 맨션 세계들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이 차이점들이 다소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유란시아** 같은 혼란스런 행성에서는, 뛰어난 이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첫 하늘의 유능한 사회학자이며, 현명한 중족 충고자다.

너희는 “하늘”이라는 말과 “온갖 하늘”이라는 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너희 선지자 대부분이 감지했던 하늘은 지역 체계의 맨션세계들 가운데 첫째였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다”고 그 사도가 말했을 때, 그는 잠자는 동안 자신의 **조울사**가 분리됐고, 이 유별난 상태에서 이 일곱 맨션 세계 가운데 셋째 세계에 투사됐던 체험을 말한 것이었다. 너희의 현자들 중에서 더러는 더 높은 하늘, 즉 “온갖 하늘”에 대한 환상을 봤었는데, 칠중{七重} 맨션 세계에 대한 체험은 첫째에 불과했으며; 둘째는 **예루셈**이고; 셋째는 **에덴시아**와 그 위성들이며; 넷째는 **살빙톤**과 그것을 둘러싼 교육 구체들이고; 다섯째는 **우버사**; 여섯째는 **하보나**; 그리고 일곱째는 **낙원**이다.

3. 정신 계획자. 이 스라빔은, 모론시아 존재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일과, 맨션 세계에서 그들이 협동하도록 조직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들

48:6.16 (552.14) Though I descend into the depths of darkness and death itself,

48:6.17 (552.15) I shall not doubt you nor fear you,

48:6.18 (552.16) For I know that in the fullness of time and the glory of your name

48:6.19 (552.17) You will raise me up to sit with you on the battlements on high.

48:6.20 (553.1) That is the story whispered in the night season to the shepherd boy. He could not retain it word for word, but to the best of his memory he gave it much as it is recorded today.

48:6.21 (553.2) These seraphim are also the evangels of the gospel of perfection attainment for the whole system as well as for the individual ascender. Even now in the young system of Satania their teachings and plans encompass provisions for the future ages when the mansion worlds will no longer serve the mortal ascenders as steppingstones to the spheres on high.

48:6.22 (553.3) **2. Racial Interpreters.** All races of mortal beings are not alike. True, there is a planetary pattern running through th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natures and tendencies of the various races of a given world; but there are also distinct racial types, and very definite social tendencies characterize the offspring of these different basic types of human beings. On the worlds of time the seraphic racial interpreters further the efforts of the race commissioners to harmonize the varied viewpoints of the races, and they continue to function on the mansion worlds, where these same differences tend to persist in a measure. On a confused planet, such as Urantia, these brilliant beings have hardly had a fair opportunity to function, but they are the skillful sociologists and the wise ethnic advisers of the first heaven.

48:6.23 (553.4) You should consider the statement about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The heaven conceived by most of your prophets was the first of the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 When the apostle spoke of being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he referred to that experience in which his Adjuster was detached during sleep and in this unusual state made a projection to the third of the seven mansion worlds. Some of your wise men saw the vision of the greater heaven, “the heaven of heavens,” of which the sevenfold mansion world experience was but the first; the second being Jerusalem; the third, Edentia and its satellites; the fourth, Salvington and the surrounding educational spheres; the fifth, Uversa; the sixth, Havona; and the seventh, Paradise.

48:6.24 (553.5) **3. Mind Planners.** These seraphim are devoted to the effective grouping of morontia beings and to organizing their teamwork on the

은 첫째 하늘의 심리학자다. 특이한 이 부서의 스랍 사역자 대부분은, 예전에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로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의 피보호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맨션 세계에서 인격화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과 융합하는 기법으로 생존했다.

맨션 세계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조율사** 혼들의 본성, 체험, 및 신분을 연구하고, 업무 분담 및 진급을 위해서 그들을 분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정신 계획가들의 과제다. 그러나 이 정신 계획가들은, 맨션 세계 학생을 책동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그들의 무지나 다른 한계를 달리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현저히 올바르다. 그들은 너희의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의지를 존중하며; 너희를 독립된 자발적 존재로 간주하고, 너희가 빨리 발달하고 진보하도록 북돋아 주려고 애쓴다. 이때 너는 참된 친구와 이해심 많은 조언자들과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네가 “남들이 너를 보는 것처럼 너 자신을 보도록”,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도록”, 너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천사다.

유란시아에서도, 이 스라빔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만일 너 자신의 정신이 너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네 정신을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바꿀 수 있는데, 그는 너를 항상 잘 섬긴다.

4. **모론시아 조언자**.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로부터 오는, 생존한 필사자들, 즉 체계 본부의 비교적 높은 학교들로 옮겨가는 혼들을 가르치고 지휘하고 조언하도록 배정됐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진다. 그들은, 가지각색의 생명 수준에서 체험적 통일성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는 자, 즉 의미 있는 것들을 종합하고 가치기준을 통합하려는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것은 필사자의 인생에서 철학의 기능이고, 모론시아 구체에서 모타의 기능이다.

모타는 뛰어난 철학 이상{以上}이며; 비교하자면, 철학은 한 눈으로 보는 것과 같고, 모타는 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 모타는 의미와 가치기준에 대해 두 눈으로 보는 효과를 갖는다. 물질적인 사람은, 말하자면, 한쪽 눈으로만--곧 평면으로--우주를 본다. 맨션 세계 학생들은, 육체적 인생에 대한 감지 위에, 모론시아 인생에 대한 감지를 첨가시킴으로써, 시공우주 원근을--곧 깊이를--획득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조언하는 스라빔의 지침 줄 모르는 사역을 통해서, 이 물질 관점과 모론시아 관점을 정확히 초점에 맞춰 볼 수 있게 되며, 이 스라빔은 맨션 세계 학생과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매우 끈기 있게 가르친다. 최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가르치는 상담자 가운데 다수는, 시간세계 필사자의 새로 해방된 혼에게 충고하는 자로서 생애를 시작했다.

5. **기술자**. 이들은, 여러 모론시아 구체의 새롭고 비교적 낮은 환경에, 새 상승자가 적응하도록 돕는 스라빔이다. 과도기 세계에서 지내는 생

mansion worlds. They are the psychologists of the first heaven. The majority of this particular division of seraphic ministers have had previous experience as guardian angels to the children of time, but their wards, for some reason, failed to personalize on the mansion worlds or else survived by the technique of Spirit fusion.

48:6.25 (553.6) It is the task of the mind planners to study the nature, experience, and status of the Adjuster souls in transit through the mansion worlds and to facilitate their grouping for assignment and advancement. But these mind planners do not scheme, manipulate, or otherwise take advantage of the ignorance or other limitations of mansion world students. They are wholly fair and eminently just. They respect your newborn morontia will; they regard you as independent volitional beings, and they seek to encourage your speedy development and advancement. Here you are face to face with true friends and understanding counselors, angels who are really able to help you “to see yourself as others see you” and “to know yourself as angels know you.”

48:6.26 (553.7) Even on Urantia, these seraphim teach the everlasting truth: If your own mind does not serve you well, you can exchange it for the mind of Jesus of Nazareth, who always serves you well.

48:6.27 (554.1) 4. *Morontia Counselors*. These ministers receive their name because they are assigned to teach, direct, and counsel the surviving mortals from the worlds of human origin, souls in transit to the higher schools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ey are the teachers of those who seek insight into the experiential unity of divergent life levels, those who are attempting the integration of meanings and the unification of values. This is the function of philosophy in mortal life, of mota on the morontia spheres.

48:6.28 (554.2) Mota is more than a superior philosophy; it is to philosophy as two eyes are to one; it has a stereoscopic effect on meanings and values. Material man sees the universe, as it were, with but one eye — flat. Mansion world students achieve cosmic perspective — depth — by superimposing the perceptions of the morontia life upon the perceptions of the physical life. And they are enabled to bring these material and morontial viewpoints into true focus largely through the untiring ministry of their seraphic counselors, who so patiently teach the mansion world students and the morontia progressors. Many of the teaching counselors of the supreme order of seraphim began their careers as advisers of the newly liberated souls of the mortals of time.

48:6.29 (554.3) 5. *Technicians*. These are the seraphim who help new ascenders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and comparatively strange

에는, 물리 수준과 모론시아 수준, 이 두 수준의 에너지 및 물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적 실체들과, 실제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상승자들은 모든 새로운 모론시아 수준에 적응해야 하며, 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스랍 기술자들의 도움을 크게 받는다. 이 스라빔은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및 총괄 물리 통제관**들 사이에 연락원으로서 활동하며, 과도기 구체들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의 성질에 관하여,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교관으로서 광범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응급 공간 횡단자로서 근무하며, 다른 정상 임무와 특별 의무를 수행한다.

6. 기록원 교사. 이 스라빔은, 영계(靈界)와 물리계(物理界)의 경계지역 처리사항들, 즉 사람과 천사의 관계, 낮은 우주 영역의 모론시아 처리사항들을 기록하는 자다. 또한 그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 근무한다. 관련 자료를 영리하게 조립하고 조정하는 데는 예술적 기교가 있고, 이 예술은 천상의 기능공들과 협동함으로써 강화되며,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도 이처럼 기록하는 스라빔과 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스랍 계층의 기록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세계의 사실을 맡은 이 관리인 천사들은, 모든 사실 추구자에게 이상적인 교관이다.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사타니아** 및 그 안에 속한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의 역사에 매우 익숙하게 될 것이며, 이야기 대부분을 스랍 기록원들이 알려줄 것이다.

이 천사들은 모두, 시간세계의 사실과 영원성의 진리를 다루는 가장 낮은 관리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기록원들 계통에 속해 있다. 언젠가 그들은 사실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라고, 너희의 정신뿐만 아니라 혼을 키우라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지식의 메마른 모래사장을 찾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심성의 정원에 물을 주는 법도 배워야 한다. 교훈을 배운 뒤에는 형식이 무가치하게 된다. 어떤 병아리도 껍데기 없이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껍데기든지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때때로 실책이 너무 커서 계시로 실책을 바로잡는 것은, 실책을 체험으로 정복하는데 기초가 되는 서서히 떠오르는 진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상(理想)을 가질 때, 그것을 몽개지 말고; 자신이 키우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너희가 성인으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너희 역시 어린아이처럼 간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법은 생명 자체이며, 생명의 실행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악이란, 생명에 관계되는 실행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며, 생명이 법이다. 거짓말은, 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environment of the morontia spheres. Life on the transition worlds entails real contact with the energies and materials of both the physical and morontia levels and to a certain extent with spiritual realities. Ascenders must acclimatize to every new morontia level, and in all of this they are greatly helped by the seraphic technicians. These seraphim act as liaisons with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nd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function extensively as instructors of the ascending pilgrims concerning the nature of those energies which are utilized on the transition spheres. They serve as emergency space traversers and perform numerous other regular and special duties.

48:6.30 (554.4)

6. Recorder-Teachers. These seraphim are the recorders of the borderland transactions of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of the relationships of men and angels, of the morontia transactions of the lower universe realms. They also serve as instructors regarding the efficient and effective techniques of fact recording. There is an artistry in the intelligent assembly and co-ordination of related data, and this art is heighte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elestial artisans, and even the ascending mortals become thus affiliated with the recording seraphim.

48:6.31 (554.5)

The recorders of all the seraphic orders devote a certain amount of time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orontia progressors. These angelic custodians of the facts of time are the ideal instructors of all fact seekers. Before leaving Jerusem, you will become quit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Satania and its 619 inhabited worlds, and much of this story will be imparted by the seraphic recorders.

48:6.32 (554.6)

These angels are all in the chain of recorders extending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custodians of the facts of time and the truths of eternity. Some day they will teach you to seek truth as well as fact, to expand your soul as well as your mind. Even now you should learn to water the garden of your heart as well as to seek for the dry sands of knowledge. Forms are valueless when lessons are learned. No chick may be had without the shell, and no shell is of any worth after the chick is hatched. But sometimes error is so great that its rectification by revelation would be fatal to those slowly emerging truths which are essential to its experiential overthrow. When children have their ideals, do not dislodge them; let them grow. And while you are learning to think as men, you should also be learning to pray as children.

48:6.33 (555.1)

Law is life itself and not the rules of its conduct. Evil is a transgression of law, not a violation of the rules of conduct pertaining to life, which is the law. Falsehood is not a matter of

진리를 왜곡시키는 고의적인 어떤 것이다. 옛 사실로부터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는 것, 자손의 삶 속에 부모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것이 진리의 예술적 승리다. 진실이 아닌 목적을 미리 생각해서, 태연한 척 하는 음침함, 원칙인 그것을 아주 약간 뒤틀거나 왜곡시킴--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나 진리를 사실화시킨 미신, 화석화 된 진리, 소위 불변의 진리라는 쇠고랑이, 냉혹한 사실로 밀폐된 궤도 안에 사람을 눈먼 채로 붙잡아 둔다. 사실에 비춰서 원칙적으로는 옳은 것이, 진리 면에서는 영구히 틀렸을 수 있다.

7. 사역하는 예비군. 모든 계층의 과도기 스라빔으로 구성된 큰 단체가, 첫 맨션 세계에 주둔한다. 운명 수호자들 다음으로, 모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이 과도기 사역자들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며, 너희는 여가 시간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 천사들은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배정되지 않을 때에는 종종 자원자로 사역한다. 상승하는 대부분 필사자의 혼은, 스랍 예비군의 자원 봉사자들과 갖는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기꺼이_봉사하겠다는 신성한 열정으로, 처음으로 불붙게 된다.

너희는, 안정성과 확실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신실하고 정직하며 게다가 쾌활하게 되기; 불만 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맞서기를,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다. 그들이 질문할 것이다: 내가 실패한다면, 너는 새로 시도하기 위해 굽히지 않고 일어설 것인가? 내가 성공한다면, 물질적 타성의 족쇄를 부수기 위해, 영 실존의 자유를 성취하려고 오래 투쟁하는 동안 온갖 노력을 통해서, 너는 차분한 자세를--곧 안정되고 영성화 된 태도를--유지할 것인가?

필사자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많은 실망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때때로 너희의 가장 낙담스러운 실망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면 그것이 먼저 죽어야 하듯이, 내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망이 사라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천사들로부터, 너는 먼저 다른 인격체들에 대해 몸소 계획하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너의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고통을 적게 받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살피면 짐이 무거워지고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의 신분 구체에서--곧 이 세상 또는 다음 세상에서-- 할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음의 더 높은 구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 것도 네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할 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그 일이 중요하더라도, *자아*는 그렇지 않다. 네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너는 자기 존엄성이 손상될 만큼 에너지를 이미 낭비해서, 그 일

narration technique but something premeditated as a perversion of truth. The creation of new pictures out of old facts, the restatement of parental life in the lives of offspring — these are the artistic triumphs of truth. The shadow of a hair's turning, premeditated for an untrue purpose, the slightest twisting or perversion of that which is principle — these constitute falseness. But the fetish of factualized truth, fossilized truth, the iron band of so-called unchanging truth, holds one blindly in a closed circle of cold fact. One can be technically right as to fact and everlastingly wrong in the truth.

48:6.34 (555.2) **7. Ministering Reserves.** A large corps of all orders of the transition seraphim is held on the first mansion world. Next to the destiny guardians, these transition ministers draw the nearest to humans of all orders of seraphim, and many of your leisure moments will be spent with them. Angels take delight in service and, when unassigned, often minister as volunteers. The soul of many an ascending mortal has for the first time been kindled by the divine fire of the will-to-service through personal friendship with the volunteer servers of the seraphic reserves.

48:6.35 (555.3) From them you will learn to let pressure develop stability and certainty; to be faithful and earnest and, withal, cheerful; to accept challenges without complaint and to face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without fear. They will ask: If you fail, will you rise indomitably to try anew? If you succeed, will you maintain a well-balanced poise — a stabilized and spiritualized attitude — throughout every effort in the long struggle to break the fetters of material inertia, to attain the freedom of spirit existence?

48:6.36 (555.4) Even as mortals, so have these angels been father to many disappointments, and they will point out that sometimes your most disappointing disappointments have become your greatest blessings. Sometimes the planting of a seed necessitates its death, the death of your fondest hopes, before it can be reborn to bear the fruits of new life and new opportunity. And from them you will learn to suffer less through sorrow and disappointment, first, by making fewer personal plans concerning other personalities, and then, by accepting your lot when you have faithfully performed your duty.

48:6.37 (555.5) You will learn that you increase your burdens and de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 by taking yourself too seriously. Nothing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work of your status sphere — this world or the next. Very important is the work of preparation for the next higher sphere, but nothing equals the importance of the work of the world in which you are actually living. But though the *work* is important, the *self* is not. When you feel important, you lose energy to the wear and tear of

을 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미성숙한 피조물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업무를_중요시여김이 아니라, 자신을_중요시여김이며; 지치게 만드는 것은, 성취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아 요소다. 자신을_중요시하지 않으면, 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너 자신을 빼버리면, 여러 일을 하나의 일을 하듯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휴식을 주며; 단조로움은 초조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 매일 매일이 마찬가지로다--바르게 살든지,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7. 모론시아 모타

모론시아 모타 중에서 낮은 차원은, 인간 철학 중에서 높은 수준과 직접 맞닿아 있다. 첫 맨션 세계에서는, 발전이 더딘 학생을 병렬식 기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관례인데; 다시 말하면, 한 줄은 모타 의미 중에서 단순한 개념이 제시되고, 다른 줄에서는 인간 철학과 비슷한 말이 인용된다.

사타니아의 첫 맨션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얼마 전에 이 교습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학습의 모타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간 철학의 28개 서술문을 기록하도록 허락 받았는데, 모타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기에 애쓸 때, 맨션 세계에 새로 체류하는 이 사람들을 돕도록 계획된 설명 자료로서, 이 모론시아 교관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인간 철학의 이 실례는 다음과 같았다:

1. 전문화된 솜씨를 보여준다고 해서, 영적 수용력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영리함이 참된 성품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2. 자신이 정말로 소유하는 신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을 속이는 주된 지적 속임수는, 불합리한 두려움이다.

3. 타고난 수용력을 초월할 수 없으며; 한 되가 한 말을 담을 수 없다. 물질적인 기억의 틀 속에, 영 개념을 기계적으로 강제로 집어넣을 수 없다.

4. 개인에게 이바지하도록, 천성과 신의 은총이 함께 확정한 신용한도를 초과하기 직전까지, 과감하게 빌리고자 하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가난해진 혼들 대부분은, 실제로 부유한데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5. 어려움은, 진부한 자에게 도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오직 **지교자**들의 참된 자녀는 이 어려움으로 자극받을 뿐이다.

6. 남용하지 않고 특권을 누림,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누림, 권력을 소유하면서도 자아를 과장하기 위해 사용하기는 단호하게 거부함--이것이

ego dignity so that there is little energy left to do the work. Self-importance, not work-importance, exhausts immature creatures; it is the self element that exhausts, not the effort to achieve. You can do important work if you do not become self-important; you can do several things as easily as one if you leave yourself out. Variety is restful; monotony is what wears and exhausts. Day after day is alike — just life or the alternative of death.

7. MORONTIA MOTA

48:7.1 (556.1) The lower planes of morontia mota join directly with the higher levels of human philosophy. On the first mansion world it is the practice to teach the less advanced students by the parallel technique; that is, in one column are presented the more simple concepts of mota meanings, and in the opposite column citation is made of analogous statements of mortal philosophy.

48:7.2 (556.2) Not long since, while executing an assignment on the first mansion world of Satania, I had occasion to observe this method of teaching; and though I may not undertake to present the mota content of the lesson, I am permitted to record the twenty-eight statements of human philosophy which this morontia instructor was utilizing as illustrative material designed to assist these new mansion world sojourners in their early efforts to grasp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mota. These illustrations of human philosophy were:

48:7.3 (556.3) 1. A display of specialized skill does not signify possession of spiritual capacity. Cleverness is not a substitute for true character.

48:7.4 (556.4) 2. Few persons live up to the faith which they really have. Unreasoned fear is a master intellectual fraud practiced upon the evolving mortal soul.

48:7.5 (556.5) 3. Inherent capacities cannot be exceeded; a pint can never hold a quart. The spirit concept cannot be mechanically forced into the material memory mold.

48:7.6 (556.6) 4. Few mortals ever dare to draw anything like the sum of personality credits established by the combined ministries of nature and grace. The majority of impoverished souls are truly rich, but they refuse to believe it.

48:7.7 (556.7) 5. Difficulties may challenge mediocrity and defeat the fearful, but they only stimulate the true children of the Most Highs.

48:7.8 (556.8) 6. To enjoy privilege without abuse, to have liberty without license, to possess power and steadfastly refuse to use it for self-aggrandizement

높은 문명을 가졌다는 표시다.

7. 맹목적이고 우연한 사건은 시공우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천상의 존재들은, 자신이 본 진리의 빛에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낮은 존재를 돕지 않는다.

8. 노력이 항상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영리한 노력 없이는 행복이 없다.

9. 행동은 힘을 얻게 하고; 온건함은 결국 매력이 된다.

10. 정의는 진리의 조화로운 화음을 산출하며, 그 가락은 심지어 **무한자**가 알아보기까지 우주에 두루 울려 퍼진다.

11. 약한 자는 결심하기 빠르지만, 강한 자는 행동한다. 인생은 오직 하루의 일이다--하루의 일을 잘 하라.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12. 우주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 필사자는 오직 고난을 체험함으로써만 지혜를 배울 수 있다.

13. 빛나고 기쁨에 넘치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체험의 밑바닥에 외로이 격리된 곳에서 별들이 가장 잘 식별된다.

14. 너의 동료들이 진리를 갈망하도록 자극하라; 진리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만 충고하라.

15. 허식은, 무식한 자가 현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스꽝스런 노력이고, 빈궁한 혼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피하는 것이다.

16. 영적 진리는, 네가 손으로 만지듯이 체험하기 전에는 파악할 수 없으며, 역경을 당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느낄 수 없는 진리가 많이 있다.

17. 야망은, 완전히 사회화되기 전에는 위험하다. 어떤 미덕이든지, 네가 그에 어울리게 행동하기 전에는, 그 미덕을 참되게 획득할 수 없다.

18. 성급함은 영에게 일종의 독약이며; 분노는 별집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19. 근심을 버려야 한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실망은, 결코 닥쳐오지 않는 실망이다.

20.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시인만이 시를 분별할 수 있다.

21. 어떤 예술이든지 그 고귀한 사명은, 그 환상을 이용하여 더 높은 우주 실체를 예시하는 것, 즉 잠시 동안의 감정을 영원성 사고{思考} 속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22. 진화하는 혼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신성하게 된다.

23. 죽음은, 지적 소유나 영적 재능에 아무 것도 더해지지 않지만, 체험에 의거한 상태에 생존

— these are the marks of high civilization.

48:7.9 (556.9) 7. Blind and unforeseen accidents do not occur in the cosmos. Neither do the celestial beings assist the lower being who refuses to act upon his light of truth.

48:7.10 (556.10) 8. Effort does not always produce joy, but there is no happiness without intelligent effort.

48:7.11 (556.11) 9. Action achieves strength; moderation eventuates in charm.

48:7.12 (556.12) 10. Righteousness strikes the harmony chords of truth, and the melody vibrates throughout the cosmos, even to the recognition of the Infinite.

48:7.13 (556.13) 11. The weak indulge in resolutions, but the strong act. Life is but a day's work — do it well. The act is ours; the consequences God's.

48:7.14 (556.14) 12. The greatest affliction of the cosmos is never to have been afflicted. Mortals only learn wisdom by experiencing tribulation.

48:7.15 (556.15) 13. Stars are best discerned from the lonely isolation of experiential depths, not from the illuminated and ecstatic mountain tops.

48:7.16 (556.16) 14. Whet the appetites of your associates for truth; give advice only when it is asked for.

48:7.17 (557.1) 15. Affectation is the ridiculous effort of the ignorant to appear wise, the attempt of the barren soul to appear rich.

48:7.18 (557.2) 16. You cannot perceive spiritual truth until you feelingly experience it, and many truths are not really felt except in adversity.

48:7.19 (557.3) 17. Ambition is dangerous until it is fully socialized. You have not truly acquired any virtue until your acts make you worthy of it.

48:7.20 (557.4) 18. Impatience is a spirit poison; anger is like a stone hurled into a hornet's nest.

48:7.21 (557.5) 19. Anxiety must be abandoned. The disappointments hardest to bear are those which never come.

48:7.22 (557.6) 20. Only a poet can discern poetry in the commonplace prose of routine existence.

48:7.23 (557.7) 21. The high mission of any art is, by its illusions, to foreshadow a higher universe reality, to crystallize the emotions of time into the thought of eternity.

48:7.24 (557.8) 22. The evolving soul is not made divine by what it does, but by what it strives to do.

48:7.25 (557.9) 23. Death added nothing to the intellectual possession or to the spiritual

하는 의식(意識)을 더해준다.

24. 영원성(永遠性)을 향한 운명은, 하루하루 살면서 이룩한 업적에 따라 순간마다 결정된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운명이다.

25. 위대함은, 소유하고 있는 힘에 있지 않고, 그런 힘을 현명하고 신성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26. 지식은 나눔으로써만 소유되며;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위험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27. 진보는 개성의 발달을 요구하며; 진부한 사람은, 표준화시킴으로써 영속시키려고 애쓴다.

28. 어떤 주장이든지, 내포된 진리가 빈약할수록 논쟁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첫 맨션 세계의 초보자들의 작품인 반면, 그 다음 세계들에서 더 진보된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시공우주 통찰력과 모론시아 모타를 터득한다.

8. 모론시아 진보자

맨션 세계들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연방우주 생애에서 영 신분을 얻게 될 때까지, 상승하는 필사자를 모론시아 진보자라고 부른다. 이 놀라운 경계지대의 생활을 너희가 거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 매력 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영 생애로 들어가고 결국 피조물 완전성에 도달하는 진화의 입구이며, 이로 인해서 상승자들은 세월의 목표--곧 **낙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이 모론시아 계획 및 차후의 영 계획, 즉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이 정교한 우주 훈련 학교에는, 확실하고 신성한 어떤 목적이 있다.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광우주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내용을 숙달하도록 점진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조주**들의 계획이며, 생존된 필사자가 조금씩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상승 과정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이 오랜 훈련 과정이 최선으로 진행된다.

필사자를 생존시키는 계획에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목표가 있으며, 너희를 생존시켜서 그저 끝없는 복과 영구적 편안함만 누리게 하려고, 이 모든 신성한 수고와 공들인 훈련에 너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 우주 시대의 수평선 너머에, 초월적 봉사라는 목표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들이, 겨우 하나의 길고도 영원한, 즐거운 소풍으로 너희를 데려가려고 계획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전체 우주를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실제 훈련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거대하게 전환시키고, 천상

endowment, but it did add to the experiential status the consciousness of *survival*.

48:7.26 (557.10) 24. The destiny of eternity is determined moment by moment by the achievements of the day by day living. The acts of today are the destiny of tomorrow.

48:7.27 (557.11) 25. Greatness lies not so much in possessing strength as in making a wise and divine use of such strength.

48:7.28 (557.12) 26. Knowledge is possessed only by sharing; it is safeguarded by wisdom and socialized by love.

48:7.29 (557.13) 27. Progress demands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mediocrity seeks perpetuation in standardization.

48:7.30 (557.14) 28. The argumentative defense of any proposition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ruth contained.

48:7.31 (557.15) Such is the work of the beginners on the first mansion world while the more advanced pupils on the later worlds are mastering the higher levels of cosmic insight and morontia mota.

8. THE MORONTIA PROGRESSORS

48:8.1 (557.16) From the time of graduation from the mansion worlds to the attainment of spirit status in the superuniverse career, ascending mortals are denominated morontia progressors. Your passage through this wonderful borderland life will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a charming memory. It is the evolutionary portal to spirit life and the eventual attainment of creature perfection by which ascenders achieve the goal of time — the finding of God on Paradise.

48:8.2 (557.17) There is a definite and divine purpose in all this morontia and subsequent spiri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this elaborate universe training school for ascending creatures. It is the design of the Creators to afford the creatures of time a graduated opportunity to master the details of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nd this long course of training is best carried forward by having the surviving mortal climb up gradually and by actual participation in every step of the ascent.

48:8.3 (558.1) The mortal-survival plan has a practical and serviceable objective; you are not the recipients of all this divine labor and painstaking training only that you may survive just to enjoy endless bliss and eternal ease. There is a goal of transcendent service concealed beyond the horiz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f the Gods designed merely to take you on one long and eternal joy excursion, they certainly would not so largely turn the whole universe into one vast and

의 창조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선생과 교관들로서 징발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 훈련의 이 거대한 우주 학교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씩 안내하려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필사자 진보 계획을 촉진시키는 것이, 현재 조직된 우주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며, 수많은 계층의 창조된 지성체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이 계획의 어떤 국면을 진행하는 것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돼 있다.

필사적 사람으로서 시작하여 **신격**에게 포용되기까지, 살아있는 실존의 상승하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너희는 현 우주 시대의 한계 속에서, 완성된 피조물 실존이 거치는 모든 가능한 국면과 단계의 바로 그 인생을 실제로 산다. 필사적 사람으로부터 **낙원** 완결성취자에 이르기까지, 현재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살아있는 여러 계층에서 총명하고 완성된 유한한 피조 존재가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낙원** 완결성취자의 미래 운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우주들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새로운 미래 창조에서는, 필사 완결성취자의 일생과는 완전히 다른 일생을 살아갈, 그런 창조된 계층의 체험적 존재는 전혀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 완결성취자들은, 상승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동물로부터 천사까지, 천사로부터 영까지,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진보하는 여정들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intricate practical training school, requisition a substantial part of the celestial creation as teachers and instructors, and then spend ages upon ages piloting you, one by one, through this gigantic universe school of experiential training. The furtherance of the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seems to be one of the chief businesses of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 and the majority of innumerable orders of created intelligences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advancing some phase of this progressive perfection plan.

48:8.4 (558.2) In traversing the ascending scale of living existence from mortal man to the Deity embrace, you actually live the very life of every possible phase and stage of perfected creature exist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From mortal man to Paradise finaliter embraces all that now can be — encompasses everything presently possible to the living orders of intelligent, perfected finite creature beings. If the future destiny of the Paradise finaliters is service in new universes now in the making, it is assured that in this new and future creation there will be no created orders of experiential beings whose lives will be who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mortal finaliters have lived on some world as a part of their ascending training, as one of the stages of their agelong progress from animal to angel and from angel to spirit and from spirit to God.

48:8.5 (558.3)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49편. 인간거주 세계

⇨ 048

유랜시아 책

050 ⇨

II 부. 지방우주

제49편
인간거주 세계

섹션

소개

1. 행성의 생명
2. 행성의 물리적 유형
3. 비호흡자의 세계
4. 의지를 지닌 진화 피조물
5. 필사자의 행성 계통
6. 이 세상을 벗어나기

PAPER 49
THE INHABITED WORLD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lanetary Life
2. Planetary Physical Types
3. Worlds of the Nonbreathers
4. Evolutionary Will Creatures
5.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6. Terrestrial Escape

소개

필사자가 거주하는 모든 세계는, 진화로 기원되고, 진화하는 본성을 지녔다. 이 구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인종들이 번식하는 곳이고 진화의 요람[搖籃]이다. 상승하는 일생의 각 구성단위는, 바로 다음 실존 무대를 위한 실제 훈련 학교이고, 이것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낙원**까지 상승하는 각 단계마다 적용되며; 진화하는 행성에서 초기의 필사자 체험의 경우에 똑같이 참말이고, **멜기세덱**들의 최종 우주 본부 학교의 경우도 그런데, 이 학교는, 연방우주 체제로 변환되고 첫 단계의 영 실존을 달성하기 직전까지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다니지 못하는 곳이다.

모든 인간거주 세계는 기본적으로 천상의 경영을 위해서 지역 체계로 집단화되며, 이 지역 체계는 각각 약 1,000개의 진화 세계로 제한돼 있다. 이 제한은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생존할 자격이 있는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실제 진화 행성에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생기기 전 단계에 있는 행성도,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사타니아 자체는 미완성 체계이며, 오직 619

INTRODUCTION

49:0.1 (559.1) ALL mortal-inhabited worlds are evolutionary in origin and nature. These spheres are the spawning ground, the evolutionary cradle, of the mortal races of time and space. Each unit of the ascendant life is a veritable training school for the stage of existence just ahead, and this is true of every stage of man's progressive Paradise ascent; just as true of the initial mortal experience on an evolutionary planet as of the final universe headquarters school of the Melchizedeks, a school which is not attended by ascending mortals until just before their translation to the regime of the superuniverse and the attainment of first-stage spirit existence.

49:0.2 (559.2) All inhabited worlds are basically grouped for celestial administration into the local systems, and each of these local systems is limited to about one thousand evolutionary worlds. This limitation is by the decree of the Ancients of Days, and it pertains to actual evolutionary planets whereon mortals of survival status are living. Neither worlds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nor planets in the prehuman stage of life development are reckoned in this group.

49:0.3 (559.3) Satania itself is an unfinished system

개의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행성은 인간거주 세계, 즉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그래서 **유란시아**에 는 **사타니아**의 606_번이 주어졌는데, 이 지역 체계에서, 오랜 진화 생명 과정이 마침내 인간을 출현시킨, 606번째 세계라는 의미다. 아직 인간이 거주하지 않지만 생명을_부여할 단계에 가까운 36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몇 개는 **생명 운반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수백만 년 내에 생명을 이식할 채비를 갖추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구체가 200개 정도 있다.

모든 행성이 필사 생명체를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축 회전 비율이 높은 작은 행성은, 생명체의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다. **사타니아**의 몇몇 물리 체계에서는 중앙의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거주지가 되기에 너무 큰데, 그 거대한 질량이 압도적인 중력을 일으킨다. 이 거대한 구체들 가운데 다수가 위성을 가졌는데, 때로는 6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며, 이런 달은 종종 **유란시아**의 크기와 매우 비슷해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거의 이상적이다.

사타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거주 세계, 즉 1_번 세계는 **아노바**인데, 하나의 거대한 암흑 행성 주변을 도는 44개 위성 가운데 하나지만, 근처에 있는 세 항성의 다른 빛에 노출돼 있다. **아노바**는 진보하는 문명 중에서 앞선 단계에 있다.

1. 행성의 생명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서서히 발달하며; 생명의 진보는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 시공우주의 진화를 항상 이해할 수는 (곧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원형질 세포인데, 이것은 화학적, 전기적, 및 기타 생물학적 에너지의 공동 결합체다. 화학 공식은 각 체계마다 다르며, 살아있는 세포의 번식 기법은 각 지방우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 생명의 원시 반응을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똑같으며; 그들은 살아있는 물질 에너지 회로들을 유발시키는 존재다.

한 지역 체계에 속한 모든 세계는 명백한 물리적 유사성을 나타내며; 그럼에도 각 행성에는 그 자체의 생명 등급이 있는데, 어떤 두 세계도, 타고난 식물 및 동물 재능에서 정확히 똑같지 않다. 체계 생명의 유형에서 행성들 사이의 이 차이는,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번덕스럽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으며; 우주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 운영된다. **네바돈**의 법은 **살빙톤**의 신성한 명령이며, **사타니아**에서 진화하

containing only 619 inhabited worlds. Such planets are numbered serially in accordance with their registration as inhabited worlds, as worlds inhabited by will creatures. Thus was Urantia given the number 606 of *Satania*, meaning the 606th world in this local system on which the long evolutionary life process culminated in the appearance of human beings. There are thirty-six uninhabited planets nearing the life-endowment stage, and several are now being made ready for the Life Carriers. There are nearly two hundred spheres which are evolving so as to be ready for life implantation within the next few million years.

49:0.4 (559.4) Not all planets are suited to harbor mortal life. Small ones having a high rate of axial revolution are wholly unsuited for life habitats. In several of the physical systems of Satania the planets revolving around the central sun are too large for habitation, their great mass occasioning oppressive gravity. Many of these enormous spheres have satellites, sometimes a half dozen or more, and these moons are often in size very near that of Urantia, so that they are almost ideal for habitation.

49:0.5 (559.5) The oldest inhabited world of Satania, world number one, is Anova, one of the forty-four satellites revolving around an enormous dark planet but exposed to the differential light of three neighboring suns. Anova is in an advanced stage of progressive civilization.

1. THE PLANETARY LIFE

49:1.1 (559.6)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gradual in development; the progression of life — terrestrial or celestial — is neither arbitrary nor magical. Cosmic evolution may not always be understandable (predictable), but it is strictly nonaccidental.

49:1.2 (560.1) The biologic unit of material life is the protoplasmic cell, the communal association of chemical, electrical, and other basic energies. The chemical formulas differ in each system, and the technique of living cell reproduction is slightly different in each local universe, but the Life Carriers are always the living catalyzers who initiate the primordial reactions of material life; they are the instigators of the energy circuits of living matter.

49:1.3 (560.2) All the worlds of a local system disclose unmistakable physical kinship; nevertheless, each planet has its own scale of life, no two worlds being exactly alike in plant and animal endowment. These planetary variations in the system life types result from the decisions of the Life Carriers. But these beings are neither capricious nor whimsical; the universe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order. The

는 계층의 생명체는 **네바돈**의 진화 원형{原型}과 일치된다.

진화가 인간의 발달을 규정하지만, 과정 자체는 세계마다 크게 달라진다. 생명은 때로 하나의 중심지에서 시작되고, 때로는 **유란시아**의 경우처럼 세 곳에서 시작된다. 공기가 있는 세계에서는 대개 해양에서 기원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행성의 물리적 상태에 많이 달려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을 개시하려고 작용하는 동안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때, 식물 형태가 동물 형태보다 항상 앞서며, 동물 원형{原型}들이 분화하기 전에 거의 완전히 발달된다. 모든 동물 유형은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앞선 식물계의 기초 원형들로부터 발달하며; 따로따로 조직화되지 않는다.

생명체가 진화하는 초기 단계들이 너희의 현 시대 관점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사적 사람은 진화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정확한 체계, 즉 보편적 법칙이 있는데, 공간의 여러 구체에서 행성 생명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그 법칙이 결정한다. 시간과 한 종{種}의 대량 번식은 통제하는 영향력이 아니다. 쥐는 코끼리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하지만, 코끼리가 쥐보다 빠르게 진화한다.

행성의 진화 과정은 질서가 있고 통제된다. 하등 생명체 군집으로부터 고등 유기체로 발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선택된 종자가 지나는 생명 원형질의 어떤 순조로운 계통이 파괴됨으로써, 진화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의 유전에서 어떤 우세한 단일 종족이 유실됨으로써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에 여러 세대가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살아있는 원형질에서 선택된 이 우수한 종족들은, 일단 출현하게 되면, 조심스럽고 영리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는, 이 우수한 생명 잠재력을 **유란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

2. 행성의 물리적 유형

각 체계에는 표준과 기본이 되는 식물 및 동물 원형{原型}이 있다. 그러나 **생명 운반자**들은 공간의 수많은 세계에서 이 기초 원형들과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 기초 원형들을 변경할 필요성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은 필사 피조물의 어떤 일반화 된 체계 유형을 육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뚜렷한 일곱 가지 물리적 유형이 있고, 이 일곱 가지 현저한 차이 중에 사소한 변종들이 수천 가지 있다:

laws of Nebadon are the divine mandates of Salvington, and the evolutionary order of life in Satania is in consonance with the evolutionary pattern of Nebadon.

49:1.4 (560.3) Evolution is the rule of human development, but the process itself varies greatly on different worlds. Life is sometimes initiated in one center, sometimes in three, as it was on Urantia. On the atmospheric worlds it usually has a marine origin, but not always; much depends on the physical status of a planet. The Life Carriers have great latitude in their function of life initiation.

49:1.5 (560.4) In the development of planetary life the vegetable form always precedes the animal and is quite fully developed before the animal patterns differentiate. All animal types are developed from the basic patterns of the preceding vegetable kingdom of living things; they are not separately organized.

49:1.6 (560.5) The early stages of life evolution are not altogether in conformity with your present-day views. *Mortal man is not an evolutionary accident.* There is a precise system, a universal law, which determines the unfolding of the planetary life plan on the spheres of space. Time and the production of large numbers of a species are not the controlling influences. Mice reproduce much more rapidly than elephants, yet elephants evolve more rapidly than mice.

49:1.7 (560.6) The process of planetary evolution is orderly and controlled. The development of higher organisms from lower groupings of life is not accidental. Sometimes evolutionary progress is temporarily delayed by the destruction of certain favorable lines of life plasm carried in a selected species. It often requires ages upon ages to recoup the damage occasioned by the loss of a single superior strain of human heredity. These selected and superior strains of living protoplasm should be jealously and intelligently guarded when once they make their appearance. And 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these superior potentials of life are valued much more highly than on Urantia.

2. PLANETARY PHYSICAL TYPES

49:2.1 (560.7) There is a standard and basic pattern of vegetable and animal life in each system. But the Life Carriers are oftentime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modifying these basic patterns to conform to the varying physical conditions which confront them on numerous worlds of space. They foster a generalized system type of mortal creature, but there are seven distinct physical types as well as thousands upon thousands of minor variants of these seven outstanding differentiations:

1. 대기{大氣} 유형.
2. 원소 유형.
3. 중력 유형.
4. 온도 유형.
5. 전기 유형.
6. 에너지주입 유형.
7. 이름 없는 유형.

사타니아 체계는, 이 유형들 전체와 수많은 중간 집단을 내포하지만, 일부는 매우 빈약하게 나타난다.

1. **대기 유형.** 필사자가 거주하는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는 주로 대기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며, 행성마다 생명이 차이 나도록 기여하는 다른 영향은 비교적 사소하다.

유란시아의 현재 대기 상태는, 숨 쉬는 유형의 사람을 지탱시키기에 거의 이상적이지만, 인간 유형은 조밀한_대기와 희박한_대기를 갖는 양쪽 행성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변경은 동물 생명체에도 적용되는데, 인간이 거주하는 다양한 구체마다 크게 다르다. 희박한_대기를 가진 세계와 조밀한_대기를 가진 세계, 양쪽 모두에서 동물 계층에 매우 큰 변경이 있다.

사타니아에 있는 대기 유형 중에서 약 2.5퍼센트는 저호흡자{低呼吸者}이고, 약 5퍼센트는 고{高}호흡자이며, 91퍼센트 이상은 중간{中間}호흡자인데, 합하면 **사타니아** 세계 중에서 98.5퍼센트가 달한다.

유란시아 인종 같은 존재는 중간호흡자로 분류되며; 너희는 평균 계층, 즉 전형적인 호흡 계층의 필사 실존이다. 너희의 가까운 이웃인 **금성**{金星}의 대기와 비슷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지성 피조물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호흡자 집단에 포함될 것이며, 한편 너희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웃인 **화성**{火星}의 대기처럼 희박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거주한다면, 저호흡자로 불릴 것이다.

필사자들이 너희의 달처럼 공기가 없는 행성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비호흡자라는 분리된 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 유형은 행성 환경에 대해서 급진적 또는 극단적 적응을 나타내며, 별도로 고려된다. 비호흡자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서 나머지 1.5퍼센트를 차지한다.

2. **원소 유형.** 이 차이는, 필사자와, 물, 공기, 및 땅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이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대로, 네 가지 뚜렷한 지성 생명체

49:2.2 (561.1) 1. Atmospheric types.

49:2.3 (561.2) 2. Elemental types.

49:2.4 (561.3) 3. Gravity types.

49:2.5 (561.4) 4. Temperature types.

49:2.6 (561.5) 5. Electric types.

49:2.7 (561.6) 6. Energizing types.

49:2.8 (561.7) 7. Unnamed types.

49:2.9 (561.8) The Satania system contains all of these types and numerous intermediate groups, although some are very sparingly represented.

49:2.10 (561.9) 1. *The atmospheric types.* The physical differences of the worlds of mortal habitation are chiefly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atmosphere; other influences which contribute to the planetary differentiation of life are relatively minor.

49:2.11 (561.10) The present atmospheric status of Urantia is almost ideal for the support of the breathing type of man, but the human type can be so modified that it can live on both the superatmospheric and the subatmospheric planets. Such modifications also extend to the animal life, which differs greatly on the various inhabited spheres. There is a very great modification of animal orders on both the sub- and the superatmospheric worlds.

49:2.12 (561.11) Of the atmospheric types in Satania, about two and one-half per cent are subbreathers, about five per cent superbreathers, and over ninety-one per cent are mid-breathers, altogether accounting for ninety-eight and one-half per cent of the Satania worlds.

49:2.13 (561.12) Beings such as the Urantia races are classified as mid-breathers; you represent the average or typical breathing order of mortal existence. If intelligent creatures should exist on a planet with an atmosphere similar to that of your near neighbor, Venus, they would belong to the superbreather group, while those inhabiting a planet with an atmosphere as thin as that of your outer neighbor, Mars, would be denominated subbreathers.

49:2.14 (561.13) If mortals should inhabit a planet devoid of air, like your moon, they would belong to the separate order of nonbreathers. This type represents a radical or extreme adjustment to the planetary environment and is separately considered. Nonbreathers account for the remaining one and one-half per cent of Satania worlds.

49:2.15 (561.14) 2. *The elemental types.* These differentiations have to do with the relation of mortals to water, air, and land, and there are four distinct species of intelligent life as they are related

종족이 있다. **유란시아** 인종은 땅 계통에 해당한다.

너희가, 어떤 세계의 초기 시대 동안 우세했던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유별난 환경 때문에, 진화하는 동물 생명체는, 쾌적한 땅과_대기 환경을 매우 초기에 제공한 행성들의 경우보다 더 오랫동안, 그 번식하는 해양 서식지에 남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어떤 고호흡자 세계에서는, 그 행성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대기에서 쉽게 통행할 수 있는 필사자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때로 유리하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때때로 물 집단과 땅 집단 사이에 끼어 있으며, 반드시 얼마 동안 땅 위에 사는데, 결국에는 땅 거주자로 진화한다. 그러나 어떤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땅_유형의 존재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날아다닌다.

인간 중에서 원시 인종의 초기 문명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놀랍고 흥미로운데, 어떤 경우에는 공중과 나무 꼭대기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아늑한 열대의 만{灣}에 있는 얕은 물속에서, 또한 그런 색다른 구체의 여명이 인종들이 사는 이 해양 동산의 바닥과 측면과 해안에서 형성된다. **유란시아**에서도, 초기에 나무 위에서 살던 조상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원시인이 대체로 나무 꼭대기에서 삶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원시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은 포유류(곰 박쥐 계통) 집단과, 해양에 서식하면서 포유동물에 속하는 물개 및 고래 같은 집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사타니아에서는, 기본 유형 중에서 7퍼센트는 물 유형이고, 70퍼센트는 땅 유형이며, 13퍼센트는 땅과_공기의 혼합 유형이다. 그러나 초기 지성 피조물이 이렇게 변경된 존재는, 인간 물고기가 아니고, 인간 새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 유형, 그리고 인간이 되기 전 유형에 속하는데, 초월 물고기가 아니고, 영화롭게 된 새도 아니며, 명백하게 필사자다.

3. **중력 유형.** 창조적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지성 존재들은 **유란시아**보다 작은 구체와 큰 구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지 않는 그런 행성의 중력에 어느 정도 순응{順應}된다.

다양한 행성 유형의 필사자는 키가 다양한데, **네바돈**에서 평균은 7피트에서 약간 모자란다. 큰 세계들 가운데 일부에는 키가 2.5피트에 불과한 존재들이 산다. 필사자의 키는 여기서 시작하여, 평균 크기 행성들의 평균 키를 지나, 작은 인간 거주 구체들에서 약 10피트에 이른다. **사타니아**에서는 키가 4피트 이하인 인종이 하나밖에 없다. **사타니아** 인간 거주 세계들 가운데 20퍼센트에는,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을 차지하는, 변경된 중력 유형

to these habitats. The Urantia races are of the land order.

49:2.16 (561.15) It is quite impossible for you to envisage the environment which prevails during the early ages of some worlds. These unusual conditions make it necessary for the evolving animal life to remain in its marine nursery habitat for longer periods than on those planets which very early provide a hospitable land-and-atmosphere environment. Conversely, on some worlds of the superbreathers, when the planet is not too large, it is sometimes expedient to provide for a mortal type which can readily negotiate atmospheric passage. These air navigators sometimes intervene between the water and land groups, and they always live in a measure upon the ground, eventually evolving into land dwellers. But on some worlds, for ages they continue to fly even after they have become land-type beings.

49:2.17 (562.1) It is both amazing and amusing to observe the early civilization of a primitive race of human beings taking shape, in one case, in the air and treetops and, in another, midst the shallow waters of sheltered tropic basins, as well as on the bottom, sides, and shores of these marine gardens of the dawn races of such extraordinary spheres. Even on Urantia there was a long age during which primitive man preserved himself and advanced his primitive civilization by living for the most part in the treetops as did his earlier arboreal ancestors. And on Urantia you still have a group of diminutive mammals (the bat family) that are air navigators, and your seals and whales, of marine habitat, are also of the mammalian order.

49:2.18 (562.2) In Satania, of the elemental types, seven per cent are water, ten per cent air, seventy per cent land, and thirteen per cent combined land-and-air types. But these modifications of early intelligent creatures are neither human fishes nor human birds. They are of the human and prehuman types, neither superfishes nor glorified birds but distinctly mortal.

49:2.19 (562.3) 3. *The gravity types.* By modification of creative design, intelligent beings ar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freely function on spheres both smaller and larger than Urantia, thus being, in measure, accommodated to the gravity of those planets which are not of ideal size and density.

49:2.20 (562.4) The various planetary types of mortals vary in height, the average in Nebadon being a trifle under seven feet. Some of the larger worlds are peopled with beings who are only about two and one-half feet in height. Mortal stature ranges from here on up through the average heights on the average-sized planets to around ten feet on the smaller inhabited spheres. In Satania there is only one race under four feet in height. Twenty per cent of the Satania inhabited worlds are peopled with

의 필사자가 살고 있다.

4. 온도 유형. **유란시아** 인종들이 생활하는 범위보다 훨씬 높은 온도, 또는 훨씬 낮은 온도, 양쪽에서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을 열_조정 기법에 따라서 분류할 때, 다섯 개의 뚜렷한 계층의 존재가 있다. 이 척도로 볼 때, **유란시아** 인종은 3_번에 해당한다. **사타니아** 세계들 가운데 30퍼센트에는 변경된 온도 유형이 산다. 중간_온도 집단에서 활동하는 **유란시아인**과 비교할 때, 12퍼센트는 높은 범위에 해당하고, 18퍼센트는 낮은 범위에 해당한다.

5. 전기 유형. 세계들의 전기{電氣}, 자기{磁氣}, 및 전자{電子} 습성은 크게 다양하다. 필사 생명체에는, 구체들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견디도록 다양하게 만든 10가지 설계가 있다. 이 10가지 종류는 또한 정상적인 항성광의 화학적 광선에 대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물리적 차이는, 어떤 면으로도 지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필사 생명체를 전기 기준으로 분류하면, 거의 23퍼센트는 **유란시아** 실존 유형인 4_번 부류에 속한다. 이 유형은 --정수{整數} 퍼센트로 따져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_번 1퍼센트; 2_번 2퍼센트; 3_번 5퍼센트; 4_번 23퍼센트; 5_번 27퍼센트; 6_번 24퍼센트; 7_번 8퍼센트; 8_번 5퍼센트; 9_번 3퍼센트; 10_번 2퍼센트.

6. 에너지주입 유형. 에너지를 받는 방식에서 모든 세계가 똑같지는 않다. 모든 인간거주 세계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기체의 호흡 교환에 맞는 막대한 양의 대기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많은 행성의 초기 및 후기 단계 동안, 너희의 현재 계층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실존할 수 없었으며; 행성의 호흡 요소들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그러나 다른 모든 선행조건이 지성 생명체에 적합할 때, **생명 운반자**들은 그런 세계에서 변경된 형태의 필사자 실존을 종종 설립하는데, 이 존재들은, 빛_에너지로, 그리고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동력을 몸소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직접, 생명_진행 교환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동물 및 필사자 영양 섭취에는 여섯 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 저호흡자들은 첫째 유형의 영양 섭취를 택하고, 해양 거주자들은 둘째, 중간호흡자들은 **유란시아**에서처럼 셋째를 이용한다. 고호흡자는 넷째 유형의 에너지 섭취를 이용하며, 한편 비호흡자는 다섯째 체제의 영양 섭취와 에너지를 이용한다. 에너지를 주입하는 여섯째 기법은 중도 피조물에만 국한된다.

mortals of the modified gravity types occupying the larger and the smaller planets.

49:2.21 (562.5) 4. *The temperature types.* It is possible to create living beings who can withstand temperatures both much higher and much lower than the life range of the Urantia races. There are five distinct orders of beings as they are classified with reference to heat-regulating mechanisms. In this scale the Urantia races are number three. Thirty per cent of Satania worlds are peopled with races of modified temperature types. Twelve per cent belong to the higher temperature ranges, eighteen per cent to the lower, as compared with Urantians, who function in the mid-temperature group.

49:2.22 (562.6) 5. *The electric types.* The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nic behavior of the worlds varies greatly. There are ten designs of mortal life variously fashioned to withstand the differential energy of the spheres. These ten varieties also react in slightly different ways to the chemical rays of ordinary sunlight. But these slight physical variations in no way affect the intellectual or the spiritual life.

49:2.23 (562.7) Of the electric groupings of mortal life, almost twenty-three per cent belong to class number four, the Urantia type of existence. These types are distributed as follows: number 1, one per cent; number 2, two per cent; number 3, five per cent; number 4, twenty-three per cent; number 5, twenty-seven per cent; number 6, twenty-four per cent; number 7, eight per cent; number 8, five per cent; number 9, three per cent; number 10, two per cent — in whole percentages.

49:2.24 (563.1) 6. *The energizing types.* Not all worlds are alike in the manner of taking in energy. Not all inhabited worlds have an atmospheric ocean suited to respiratory exchange of gases, such as is present on Urantia. During the earlier and the later stages of many planets, beings of your present order could not exist; and when the respiratory factors of a planet are very high or very low, but when all other prerequisites to intelligent life are adequate, the Life Carriers often establish on such worlds a modified form of mortal existence, beings who are competent to effect their life-process exchanges directly by means of light-energy and the firsthand power transmuta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49:2.25 (563.2) There are six differing types of animal and mortal nutrition: The subbreathers employ the first type of nutrition, the marine dwellers the second, the mid-breathers the third, as on Urantia. The superbreathers employ the fourth type of energy intake, while the nonbreathers utilize the fifth order of nutrition and energy. The sixth technique of energizing is limited to the midway creatures.

7. 이름 없는 유형. 행성의 생명체에는 수많은 추가적인 물리적 다양성이 있지만, 이 차이는 모두 전적으로, 해부학적 변경, 생리적 차이, 그리고 전기화학적 조정의 문제다. 그런 특징들은 지적 생명이나 영적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다.

49:2.26 (563.3) 7. *The unnamed types.*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physical variations in planetary life, but all of these differences are wholly matters of anatomical modification, physiologic differentiation, and electrochemical adjustment. Such distinctions do not concern the intellectual or the spiritual life.

3. 비호흡자의 세계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는 숨을 쉬는 유형의 지성 존재가 산다. 그러나 또한, 공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필사자 계통도 있다. **오르본톤**에서 인간거주 세계들 가운데 이 유형은 7퍼센트 미만이다. 이 비율은 **네바돈**의 경우에 3퍼센트 미만이다. 온 **사타니아**에서 그런 세계는 아홉 개밖에 없다.

사타니아에는 비호흡자 유형의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이 극히 적은데, 이는 **노라티아덱**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직된 이 부분에 아직도 유성{流星} 같은 천체들이 많고;마찰로 보호하는 대기가 없는 세계는, 이 방랑자들의 폭격을 끊임없이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성들의 때로 이뤄진 혜성들도 더러 있지만, 대개 혜성들은 분쇄된 비교적 작은 물질 덩어리다.

수백만의 운석이 매일같이 거의 초당 200마일 속도로 **유란시아** 대기 속으로 들어온다. 비호흡 세계에서는 진보된 인종들이 운석을 태워버리거나 회피시키도록 작동하는 전기 장치를 만들으로써, 운석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보호된 이 지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벗어날 때, 그들은 큰 위험에 직면한다.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성질의 끔찍한 전기 폭풍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엄청난 에너지 동요가 있는 그런 시기 동안, 거주민은 방어{防禦} 절연체로 된 특별한 구조물 속으로 피해야만 된다.

비호흡자가 사는 세계의 생활은 **유란시아**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자는, **유란시아** 인종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특화된 이 사람들의 신경 체계 반응, 열_조정 장치, 및 신진대사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그런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식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삶의 활동이 다르며, 출산{出産}하는 방식조차 어느 정도 다르다.

비호흡 세계에 있는 동물 종자들은, 대기가 있는 행성에서 발견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 생활 계획은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 실존하는 기법과 다르며;심지어 생존에서도 거기 있는 민족들은 다른데, 영 융합의 후보자들. 그럼에도 이 존재들은 삶을 즐기며,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 사는 필사자들이 체험하는 것과 똑같이, 상대적인

3. WORLDS OF THE NONBREATHERS

49:3.1 (563.4) The majority of inhabited planets are peopled with the breathing type of intelligent beings. But there are also orders of mortals who are able to live on worlds with little or no air. Of the Orvonton inhabited worlds this type amounts to less than seven per cent. In Nebadon this percentage is less than three. In all Satania there are only nine such worlds.

49:3.2 (563.5) There are so very few of the nonbreather type of inhabited worlds in Satania because this more recently organized section of Norlatiadek still abounds in meteoric space bodies; and worlds without a protective friction atmosphere are subject to incessant bombardment by these wanderers. Even some of the comets consist of meteor swarms, but as a rule they are disrupted smaller bodies of matter.

49:3.3 (563.6) Millions upon millions of meteorites enter the atmosphere of Urantia daily, coming in at the rate of almost two hundred miles a second. On the nonbreathing worlds the advanced races must do much to protect themselves from meteor damage by making electrical installations which operate to consume or shunt the meteors. Great danger confronts them when they venture beyond these protected zones. These worlds are also subject to disastrous electrical storms of a nature unknown on Urantia. During such times of tremendous energy fluctuation the inhabitants must take refuge in their special structures of protective insulation.

49:3.4 (563.7) Life on the worlds of the nonbreathers is radically different from what it is on Urantia. The nonbreathers do not eat food or drink water as do the Urantia races. The reactions of the nervous system, the heat-regulating mechanism, and the metabolism of these specialized peoples are radically different from such functions of Urantia mortals. Almost every act of living, aside from reproduction, differs, and even the methods of procreation are somewhat different.

49:3.5 (564.1) On the nonbreathing worlds the animal species are radically unlike those found on the atmospheric planets. The nonbreathing plan of life varies from the technique of existence on an atmospheric world; even in survival their peoples differ, being candidates for Spirit fusion. Nevertheless, these beings enjoy life and carry

시련과 기쁨을 갖고 그 영역의 활동을 진행한다. 정신과 성품에서, 비호흡자는 다른 필사자 유형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이 유형의 필사자가 행성에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더 흥미를 가질 것인데, 그런 인종의 존재들이 **유란시아**에 아주 가까이 있는 어느 구체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4. 의지를 지닌 진화 피조물

다른 여러 세계에 있는 필사자들 사이에, 심지어 같은 지적 및 육체적 유형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의지 존엄성을 갖는 모든 필사자는, 직립 동물, 즉 두 발로 서는 동물이다.

여섯 가지 기본 진화 인종이 있다:셋은--곧 홍색, 황색, 및 청색은 -- 1차이고;셋은--곧 주황색, 녹색, 및 남색은-- 2차다.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는 이 인종들 전부를 포함하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행성들 중에서 다수는 세 개의 1차 유형만 포함한다. 어떤 지역 체계 역시 이 세 인종만 갖고 있다.

인간이 특별히 부여받은 육신 감각은 보통 열두 가지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의 특별 감각은 한 개의 뇌와 두 개의 뇌를 가진 유형보다 약간 더 확장돼 있으며;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보다 상당히 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아이는 대개 하나씩 태어나고, 여럿이 태어나는 것은 예외이며, 가정생활은 모든 유형의 행성에서 상당히 균일하다. 진보된 모든 세계에는 남녀평등이 널리 보급돼 있으며;남성과 여성은 정신재능과 영적 신분에서 동일하다. 한 편의 성이 다른 편을 확대하려고 추구하는 한, 우리는 행성이 야만적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여기지 않는다. 피조물이 겪는 체험의 이런 특색은, **물질 아들** 및 **딸**의 도착 후에 반드시 크게 개선된다.

계절과 기온의 변화는, 항성의 빛을 받고 항성으로 가열되는 모든 행성에서 발생된다. 농업은 대기를 갖는 모든 세계에서 보편적이며;땅을 경작하는 일은 그런 모든 행성의 발전된 인종들에게 유일하게 공통된 직업이다.

초기 시대에 필사자는 모두,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지금 체험하는 것 같이, 극히 미세한 적들과 동일한 일반적 투쟁을 벌이지만, 그렇게 광범하지는 않다. 생명의 길이는, 원시 세계들에서 25년으로부터, 더 진보되고 오래된 구체들에서 500년에 이르기까지, 행성마다 다르다.

인간은 모두, 부족끼리 그리고 인종끼리 집단 생활을 한다. 집단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은, 그 기원과 구성에서 선천적이다. 그런 경향은, 오직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그리고 점진적 영성화를

forward the activities of the realm with the same relative trials and joys that are experienced by the mortals living on atmospheric worlds. In mind and character the nonbreathers do not differ from other mortal types.

49:3.6 (564.2) You would be more than interested in the planetary conduct of this type of mortal because such a race of beings inhabits a sphere in close proximity to Urantia.

4. EVOLUTIONARY WILL CREATURES

49:4.1 (564.3)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mortals of the different worlds, even among those belonging to the same intellectual and physical types, but all mortals of will dignity are erect animals, bipeds.

49:4.2 (564.4) There are six basic evolutionary races: three primary — red, yellow, and blue; and three secondary — orange, green, and indigo. Most inhabited worlds have all of these races, but many of the three-brained planets harbor only the three primary types. Some local systems also have only these three races.

49:4.3 (564.5) The average special physical-sense endowment of human beings is twelve, though the special senses of the three-brained mortals are extended slightly beyond those of the one- and two-brained types; they can see and hear considerably more than the Urantia races.

49:4.4 (564.6) Young are usually born singly, multiple births being the exception, and the family life is fairly uniform on all types of planets. Sex equality prevails on all advanced worlds; male and female are equal in mind endowment and spiritual status. We do not regard a planet as having emerged from barbarism so long as one sex seeks to tyrannize over the other. This feature of creature experience is always greatly improved after the arrival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49:4.5 (564.7) Seasons and temperature variations occur on all sunlit and sun-heated planets. Agriculture is universal on all atmospheric worlds; tilling the soil is the one pursuit that is common to the advancing races of all such planets.

49:4.6 (564.8) Mortals all have the same general struggles with microscopic foes in their early days, such as you now experience on Urantia, though perhaps not so extensive. The length of life varies on the different planets from twenty-five years on the primitive worlds to near five hundred on the more advanced and older spheres.

49:4.7 (564.9) Human beings are all gregarious, both tribal and racial. These group segregations are inherent in their origin and constitution. Such tendencies can be modified only by advancing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인간거주 세계의 사회, 경제, 및 정부 차원의 문제는, 행성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이어지는 체류에 그들이 영향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정신은 **무한한 영**이 증여한 것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매우 동일하게 작용한다. 필사자들의 정신은 서로 유사하며, 지역 체계들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육체적 본성의 특징인, 어떤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와는 상관없다. 개인의 차이나 행성의 물리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의 정신 생활은 매우 비슷하며, 죽음 직후에 그들의 생애는 대단히 비슷하다.

그러나 불멸의 영 없이는, 필사 정신이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오직 증여된 영만 죽지 않는다. 생존은 **조울사**의 사역으로 영성화되는 데 달려있으며--곧 죽지 않는 혼이 태어나고 진화되는 데 달려있으며; 적어도, 물질적 정신에 영적 변형을 일으키는 **조울사**의 사명에 대해 반항심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5. 필사자의 행성 계통

필사자의 행성 계통에 대해서 적당하게 묘사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너무 아는 바 없기 때문이며, 변종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필사 피조물을 수많은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2. 뇌_유형 계통.
3. 영_감수성 계통.
4. 행성의_필사자 시기.
5. 피조물_유사성 계통.
6. **조울사**_융합 계통.
7.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기법.

일곱 연방우주의 인간거주 구체들에는, 진화 피조물 생명체의 이 일곱 가지 일반화 된 부류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겹쳐서 분류되는 필사자가 산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분류조차, 중간유한절대자 같은 그런 존재들뿐 아니라, 지성 생명을 갖는 어떤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본 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간거주 세계들에는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이 살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도 있다.

civilization and by gradual spiritu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governmental problems of the inhabited worlds vary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the planet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uccessive sojourns of the divine Sons.

49:4.8 (564.10) Mind is the bestowal of the Infinite Spirit and functions quite the same in diverse environments. The mind of mortals is akin, regardless of certain structural and chemical differences which characterize the physical natures of the will creatures of the local systems. Regardless of personal or physical planetary differences, the mental life of all these various orders of mortals is very similar, and their immediate careers after death are very much alike.

49:4.9 (565.1) But mortal mind without immortal spirit cannot survive. The mind of man is mortal; only the bestowed spirit is immortal. Survival is dependent on spiritualization by the ministry of the Adjuster — on the birth and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at least, there must not have developed an antagonism towards the Adjuster's mission of effecting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the material mind.

5.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49:5.1 (565.2) It will be somewhat difficult to make an adequate portrayal of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because you know so little about them, and because there are so many variations. Mortal creatures may, however, be studied from numerous viewpoints, among which are the following:

- 49:5.2 (565.3) 1. Adjustment to planetary environment.
- 49:5.3 (565.4) 2. Brain-type series.
- 49:5.4 (565.5) 3. Spirit-reception series.
- 49:5.5 (565.6) 4. Planetary-mortal epochs.
- 49:5.6 (565.7) 5. Creature-kinship serials.
- 49:5.7 (565.8) 6. Adjuster-fusion series.
- 49:5.8 (565.9) 7. Techniques of terrestrial escape.

49:5.9 (565.10) The inhabited spher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peopled with mortals who simultaneously classify in some one or more categories of each of these seven generalized classes of evolutionary creature life. But even these general classifications make no provision for such beings as midsoniters nor for certain other forms of intelligent life. The inhabited worlds, as they have been presented in these narratives, are peopled with evolutionary mortal creatures, but there are other life forms.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행성 환경에 적응하는 피조물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거주 세계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 즉 정상적 적응 집단, 급진적{急進的} 적응 집단, 및 실험하는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행성 상황에 대한 정상적 적응은, 앞에서 고려된 일반적인 물리 원형{原型}을 따른다. 비호흡자의 세계는 급진적 적응, 즉 극단적 적응을 대표하지만, 다른 유형들 역시 이 집단에 포함된다. 실험 세계는 대개 전형적 생명체 형태에 이상적으로 적응돼 있으며, 이런 10진 행성에서는 **생명 운반자**들이 표준 생명 설계도에 유익한 변화를 산출하려고 시도한다. 너희 세계는 실험 행성이므로, **사타니아**에서 자매 구체들과는 현저히 다르며; **유란시아**에 나타나는 생명체 형태 가운데 많은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평범한 종자 중에서 많은 것이 너희 행성에는 없다.

네바돈 우주에서, 생명체_변경 세계 전체가 연속물로서 함께 연결돼 있고, 지정된 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별 분야의 우주 직무를 구성하며; 이 모든 실험 세계는 우주 지휘자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데, 그 단체의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로 알려진 노련한 완결 성취자다.

2. **뇌_유형 계통.** 필사자들에게 육신적으로 한 가지 균일한 성질은, 뇌와 신경 체계이며; 그럼에도 뇌 장치에는 세 가지 기본 조직이 있는데: 한 개의 뇌 유형, 두 개의 뇌 유형, 그리고 세 개의 뇌 유형이다. **유란시아인**은 두 개의 뇌 유형에 속하는데, 한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보다 어느 정도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철학적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덜 영적이고 덜 윤리적이며 덜 경건하다. 뇌의 이런 차이는 인간이 되기 전 동물 실존에서도 특징을 나타낸다.

유란시아인 대뇌피질{大腦皮質}의 두_반구체{半球體} 유형으로부터 유추함으로써, 너희는 하나의 뇌를 가진 유형에 대해 무언가 파악할 수 있다.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의 셋째 뇌는, 너희의 소뇌, 즉 흔적만 있는 뇌 형태가 발달한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합한데, 이것은 주로 상위의 두 뇌가 더 높은 용무에: 즉 하나는 지적 활동에, 다른 하나는 **사고 조율사**가 영적으로_찍을_이루는 활동에 몰입하도록 자유롭게 남겨둔 채, 주로 육체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지점까지 발전한다.

한 개의 뇌를 가진 인종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은, 두 개의 뇌를 가진 종류에 비해 약간 제한돼 있으며, 한편 세 개의 뇌를 가진 집단에 해당하는 비교적 오래된 행성들은, **유란시아인**을 몹시 놀라게 할 만한 문명을 나타내며, 비교한다면 너희의 문명을 어느 정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기계의 발달과 물질 문명에서, 그리고 지적 진보에

49:5.10 (565.11) 1. *Adjustment to planetary environment.* There are three general groups of inhabited worlds from the standpoint of the adjustment of creature life to the planetary environment: the normal adjustment group, the radical adjustment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49:5.11 (565.12) Normal adjustments to planetary conditions follow the general physical patterns previously considered. The worlds of the nonbreathers typify the radical or extreme adjustment, but other types are also included in this group. Experimental worlds are usually ideally adapted to the typical life forms, and on these decimal planets the Life Carriers attempt to produce beneficial variations in the standard life designs. Since your world is an experimental planet, it differs markedly from its sister spheres in Satania; many forms of life have appeared on Urantia that are not found elsewhere; likewise are many common species absent from your planet.

49:5.12 (565.13) In the universe of Nebadon, all the life-modification worlds are serially linked together and constitute a special domain of universe affairs which is given attention by designated administrators; and all of these experimental worlds are periodically inspected by a corps of universe directors whose chief is the veteran finaliter known in Satania as Tabamantia.

49:5.13 (566.1) 2. *Brain-type series.* The one physical uniformity of mortals is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basic organizations of the brain mechanism: the one-, the two-, and the three-brained types. Urantians are of the two-brained type, somewhat more imaginative, adventurous, and philosophical than the one-brained mortals but somewhat less spiritual, ethical, and worshipful than the three-brained orders. These brain differences characterize even the prehuman animal existences.

49:5.14 (566.2) From the two-hemisphere type of the Urantian cerebral cortex you can, by analogy, grasp something of the one-brained type. The third brain of the three-brained orders is best conceived as an evolverment of your lower or rudimentary form of brain, which is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it functions chiefly in control of physical activities, leaving the two superior brains free for higher engagements: one for intellectual functions and the other for the spiritual-counterparting activities of the Thought Adjuster.

49:5.15 (566.3) While the terrestrial attainments of the one-brained races are slightly limited in comparison with the two-brained orders, the older planets of the three-brained group exhibit civilizations that would astound Urantians, and which would somewhat shame yours by comparison. In mechanical development and

서도, 두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 세계는 세 개의 뇌를 가진 구체에 필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신 통제와 지적 및 영적 상호작용의 발달 면에서, 너희는 어느 정도 뒤떨어진다.

어느 세계 또는 집단을 이룬 세계들의 지적 진보 또는 영적 달성에 관한 그런 모든 비교 평가는, 행성의 나이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하며;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나이, 생물학적 개량자들의 도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의 차후 사명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 개의 뇌를 가진 사람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뇌를 가진 종류보다 약간 높은 행성 진화를 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유형의 원형질을 가졌고, **유란시아**에서 인간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행성 활동을 수행한다. 이 세 유형의 필사자들이 지역 체계의 세계들 전역에 두루 퍼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행성 환경은, 다른 세계에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을 설계하기 위한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생명 운반자**들의 특권이다.

상승 생애에서, 이 세 계통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각자 동일한 지적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자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을 완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 세계들에 대한 체계의 경영과 성과의 전면통제는 한결같이 차별이 없으며; 심지어 **행성 왕자**들의 체제도 동일하다.

3. **영_감수성 계통**. 영의 직무와 접촉하는 것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집단의 정신 설계가 있다. 이 분류는 한 개의 뇌, 두 개의 뇌,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의 필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주로 분비선의 화학작용을 말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 뇌하수체에 비교될 수 있는 특별한 분비선들의 조직을 말한다. 어떤 세계의 인종은 하나의 분비선을 갖고, 다른 데서는 **유란시아** 인처럼 두 개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구체들에서는 인종들이 독특한 이 조직체를 세 개 갖고 있다. 타고난 상상력과 영적 감수성은, 서로 다른 이 화학적 재능에 명확하게 영향을 받는다.

영_감수성 유형 중에서, 65퍼센트는 **유란시아** 인종들처럼 둘째 집단이다. 12퍼센트가 첫째 형태인데,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떨어지며, 한편 23퍼센트는 현세의 생애를 사는 동안 더 영적 성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자연사로 끝나며; 이 모든 인종적 차이는 오직 육신 속의 생애에만 관계된다.

4. **행성의_필사자 시기**. 이 분류는, 사람의 이 세상 신분, 그리고 천상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는 이 세상 섭리시대들이 이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다.

material civilization, even in intellectual progress, the two-brained mortal worlds are able to equal the three-brained spheres. But in the higher control of mind and development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reciprocation, you are somewhat inferior.

49:5.16 (566.4) All such comparative estimates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gress or the spiritual attainments of any world or group of worlds should in fairness recognize planetary age; much, very much, depends on age, the help of the biologic uplifters, and the subsequent missions of the various orders of the divine Sons.

49:5.17 (566.5) While the three-brained peoples are capable of a slightly higher planetary evolution than either the one- or two-brained orders, all have the same type of life plasm and carry on planetary activities in very similar ways, much as do human beings on Urantia. These three types of mortal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worlds of the local systems. In the majority of cases planetary conditions had very little to do with the decisions of the Life Carriers to project these varied orders of mortals on the different worlds; it is a prerogative of the Life Carriers thus to plan and execute.

49:5.18 (566.6) These three orders stand on an equal footing in the ascension career. Each must traverse the same intellectual scale of development, and each must master the same spiritual tests of progression. The system administration and the constellation overcontrol of these different worlds are uniformly free from discrimination; even the regimes of the Planetary Princes are identical.

49:5.19 (566.7) 3. *Spirit-reception series*. There are three groups of mind design as related to contact with spirit affairs. This classification does not refer to the one-, two-, and three-brained orders of mortals; it refers primarily to gland chemistry, more particularly to the organization of certain glands comparable to the pituitary bodies. The races on some worlds have one gland, on others two, as do Urantians, while on still other spheres the races have three of these unique bodies. The inherent imagination and spiritual receptivity is definitely influenced by this differential chemical endowment.

49:5.20 (566.8) Of the spirit-reception types, sixty-five per cent are of the second group, like the Urantia races. Twelve per cent are of the first type, naturally less receptive, while twenty-three per cent are more spiritually inclined during terrestrial life. But such distinctions do not survive natural death; all of these racial differences pertain only to the life in the flesh.

49:5.21 (567.1) 4. *Planetary-mortal epochs*. This classification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temporal dispensations as they affect man's terrestrial status and his reception of celestial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에서 생명을 창시하는데, 그들은 필사적 사람이 진화로 출현한 후 어느 정도 지나갈 때까지 그 발전을 감시한다. 행성을 떠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한 명의 **행성 왕자**를 그 영역의 통치자로서 정식으로 임명한다. 이 통치자와 함께, 할당받은 숫자대로 하위의 조수(助手)와 사역하는 도우미가 도착하며, 산 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 통치자의 도착과 동시에 있게 된다.

인간 집단들이 출현하고 나서, 이 **행성 왕자**가 인간의 문명을 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도착한다. 혼란에 빠진 너희 세계에는, **행성 왕자**가 통치하는 초기 시대의 특징이 없는데, **유란시아**에서 그런 경영이 막 시작될 무렵에, 너희의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 차**가 **체계 주권자 루시퍼**와 반역의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너희 행성은 그 후로 계속, 험악한 행로를 걸어 왔다.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행성 왕자**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인종 진보가 자연스런 생물학적 정점(頂點)에 도달하며, 그 후에 곧, **체계 주권자**가 **물질 아들**과 **딸**을 그 행성으로 보낸다. 외계에서 들어온 이 존재들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이바지하며, **유란시아**에서 그들의 태만이 너희 행성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간 종족의 지적 및 윤리적 진보가 진화 발달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집정관 사명을 띤 **낙원의 아보날 아들**이 거기로 오며; 그 후에 그런 세계의 영적 상태가 자연스런 달성 한계에 도달할 때, 한 명의 중여 **낙원 아들**이 그 행성을 방문한다. 중여 **아들**의 주요 사명은, 행성의 지위를 확립하고, 행성에서 활동하도록 **진리의 영**을 양도하며, 그리하여 **사고 조율사**들이 보편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다.

유란시아는 여기서 다시 빗나갔다: 너희 세계에서는 집정관의 사명이 수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중여된 **아들도 아보날** 계층이 아니었으며; 너희 행성은 **주권자 아들**, 즉 **네바돈의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살았던 고향 행성이 되는 대단한 명예를 누렸다.

신성한 아들신분 계층이 잇따라 모두 사역한 결과로, 인간계주 세계들과 거기서 진보하는 인종들은 행성 진화의 정점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런 세계들은, 이제 전성기에 달하는 사명, 즉 **삼위 일체 교사 아들**들이 도착할 때가 무르익게 된다. **교사 아들**들의 이 시기는, 최종 행성 시대--곧 진화로 인한 유토피아--, 즉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다.

인간에 대한 이 분류는 이어지는 문서에서 특별하게 언급될 것이다.

ministry.

49:5.22 (567.2) Life is initiated on the planets by the Life Carriers, who watch over its development until sometime after the evolutionary appearance of mortal man. Before the Life Carriers leave a planet, they duly install a Planetary Prince as ruler of the realm. With this ruler there arrives a full quota of subordinate auxiliaries and ministering helpers, and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living and the dead is simultaneous with his arrival.

49:5.23 (567.3) With the emergence of human groupings, this Planetary Prince arrives to inaugurate human civilization and to focalize human society. Your world of confusion is no criterion of the early days of the reign of the Planetary Princes, for it was near the beginning of such an administration on Urantia that your Planetary Prince, Caligastia, cast his lot with the rebellion of the System Sovereign, Lucifer. Your planet has pursued a stormy course ever since.

49:5.24 (567.4) On a normal evolutionary world, racial progress attains its natural biologic peak during the regime of the Planetary Prince, and shortly thereafter the System Sovereign dispatches a Material Son and Daughter to that planet. These imported beings are of service as biologic uplifters; their default on Urantia further complicated your planetary history.

49:5.25 (567.5) When the intellectual and ethical progress of a human race has reached the limits of evolutionary development, there comes an Avonal Son of Paradise on a magisterial mission; and later on, when the spiritual status of such a world is nearing its limit of natural attainment, the planet is visited by a Paradise bestowal Son. The chief mission of a bestowal Son is to establish the planetary status, release the Spirit of Truth for planetary function, and thus effect the universal coming of the Thought Adjusters.

49:5.26 (567.6) Here, again, Urantia deviates: There has never been a magisterial mission on your world, neither was your bestowal Son of the Avonal order; your planet enjoyed the signal honor of becoming the mortal home planet of the Sovereign Son, Michael of Nebadon.

49:5.27 (567.7) As a result of the ministry of all the successive orders of divine sonship, the inhabited worlds and their advancing races begin to approach the apex of planetary evolution. Such worlds now become ripe for the culminating mission, the arrival of the Trinity Teacher Sons. This epoch of the Teacher Sons is the vestibule to the final planetary age — evolutionary utopia — the age of light and life.

49:5.28 (567.8) This classification of human beings will receive particular attention in a succeeding paper.

5. **피조물_유사성 계열**. 행성들은, 체계, 성좌, 등등으로 그렇게 수직적으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우주 경영은 또한, 유형, 계통, 및 기타 관계에 따라서 수평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옆으로 뻗는 우주 경영은, 다른 구체들에서 독립적으로 육성돼 온, 비슷한 성질을 갖는 활동의 조정 에 더 특별하게 관계한다. 관련된 이 부류의 우주 피조물들은, 오랜 체험을 가진 완결성취자들이 주관하는 혼합된 어떤 단체의 고등 인격체들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는다.

이런 유사한 요소가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연속물의 유사성이 필사 피조물뿐 아니라, 비인간 인격체 가운데서도--심지어 인간 및 초인간 계층 사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성 존재들은, 각기 일곱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12개의 대집단 안에서 수직으로 관련돼 있다. 독특하게 관련된 이 생물 집단들의 조화는, **지존하신 분**의 완전하게 납득되지 않는 어떤 기법에 따라서 이뤄질지도 모른다.

6. **조율사_융합 계통**. 융합되기 이전의 체험을 겪는 동안에 모든 필사자의 영적 분류 또는 집단화는, 인격의 상태와,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의 관계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네바돈**에 있는 인간거주 세계들 중에서 거의 90퍼센트는 **조율사**와 융합하는 필사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웃에 있는 어떤 우주에는, 간신히 절반을 넘는 세계들이, **조율사**가 내주하는 영원한 융합 후보자들을 품고 있다.

7.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기법**. 개별 인간 생명체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임신과 자연분만을 통해서이며, 반면에 사람이 이 세상 신분에서 벗어나서,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낙원** 상승자들의 물결에 합류하는 기법은 무수히 많다.

6. 이 세상을 벗어나기

서로 다른 모든 물리적 유형과 행성 계통의 필사자는, **사고 조율사**, 수호천사, 그리고 **무한한 영**의 다양한 계층의 사자{使者} 무리가 담당하는 사역을 똑같이 누린다. 모두가 똑같이 자연사로 해방되어 육신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며, 모두가 똑같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진화하고 정신이 진보하는 모론시아 세계들로 나아간다.

때로는, 행성 당국 또는 체계 통치자들의 동의에 따라서, 잠자는 생존자들의 특별한 부활이 이뤄진다. 그런 부활은 적어도 행성 시간으로 1,000년마다 이뤄지는데, 그때 전부는 아니지만 “티끌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런 특별 부활은, 필사자를 상승시키려는 지방우주 계

49:5.29 (567.9) 5. *Creature-kinship serials*. Planets are not only organized vertically into systems, constellations, and so on, but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lso provides for horizontal groupings according to type, series, and other relationships. This lateral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pertains more particularly to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of a kindred nature which have been independently fostered on different spheres. These related classes of universe creatures are periodically inspected by certain composite corps of high personalities presided over by long-experienced finaliters.

49:5.30 (568.1) These kinship factors are manifest on all levels, for kinship serials exist among nonhuman personalities as well as among mortal creatures — even between human and superhuman orders. Intelligent beings are vertically related in twelve great groups of seven major divisions each. The co-ordination of these uniquely related groups of living beings is probably effected by some not fully comprehended technique of the Supreme Being.

49:5.31 (568.2) 6. *Adjuster-fusion series*. The spiritual classification or grouping of all mortals during their pre-fusion experience is wholly determined by the relation of the personality status to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 Almost ninety per cent of the inhabited worlds of Nebadon are peopled with Adjuster-fusion mortals in contrast with a near-by universe where scarcely more than one half of the worlds harbor beings who are Adjuster-indwelt candidates for eternal fusion.

49:5.32 (568.3) 7. *Techniques of terrestrial escape*. There is fundamentally only one way in which individual human life can be initiated on the inhabited worlds, and that is through creature procreation and natural birth; but there are numerous techniques whereby man escapes his terrestrial status and gains access to the inward moving stream of Paradise ascenders.

6. TERRESTRIAL ESCAPE

49:6.1 (568.4) All of the differing physical types and planetary series of mortals alike enjoy the ministry of Thought Adjusters, guardian angels, and the various orders of the messenger hosts of the Infinite Spirit. All alike are liberated from the bonds of flesh by the emancipation of natural death, and all alike go thence to the morontia worlds of spiritual evolution and mind progress.

49:6.2 (568.5) From time to time, on motion of the planetary authorities or the system rulers, special resurrections of the sleeping survivors are conducted. Such resurrections occur at least every millennium of planetary time, when not all but “many of those who sleep in the dust awake.”

획에서, 특정한 봉사를 하도록 특별한 집단의 상승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다. 이 특별 부활에는 실용적 이유가 있고, 감상적 관계도 연결돼 있다.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시대 내내, 특별 부활과 1,000년마다 부활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 맨션 구체로 호출되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는, 행성에서 근무하는 어떤 신성한 **아들**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섭리시대가 개시될 때 다시 인격화된다.

1. **섭리시대에 생존하거나 집단 체제로 생존하는 필사자**. 인간거주 세계에 첫 **조율사**가 도착할 때, 수호 스라빔 역시 나타나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다.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명이 소멸된 기간 내내, 새롭게 진화된 불멸하는 혼의 영적 가치와 영원한 실체를, 개인 또는 집단 수호 스라빔이, 신성시되는 위탁물로서 보관한다.

잠자는 생존자들에게 배정된 집단 수호자들은, 심판하는 **아들**들이 그 세계에 출현할 때 항상 함께 활동한다. “그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저희는 그가 택한 자들을 사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잠자는 필사자를 다시 인격화시키는 일에 배정된 각 스라빔과 함께, 돌아온 **조율사**가 작용하는데, 그는 육신 속에 살았던 날들 동안 그의 안에 살았던 바로 그 불멸하는 **아버지** 단편{斷片}이며, 그리하여 신분이 복원되고 인격이 부활된다. 자신의 상대자가 잠자는 동안, 기다리는 이 **조율사**들은 **디비닝톤**에서 근무하며; 이 기간에는 다른 필사자 속에 결코 내주하지 않는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비교적 오래된 세계들은, 모론시아 생애를 사실상 면제받은, 고도로 발달하고 지극히 영적인 유형의 인간들을 품고 있으며, 반면에 동물에서 기원된 인종들의 초기 시절의 특징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시 필사자가 미숙하다는 점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에 속한 불멸하는 영{靈}의 개별화된 부분과 함께, 수호 스라빔이, 이런 필사자들을 다시 깨우는 일은 해낸다.

이렇게,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은, 섭리시대 출석적호가 있을 때 다시 인격화된다. 그러나 어떤 영역의 구원받지 못할 인격에 관해서 말하자면, 집단 운명 수호자들과 함께 활동하려고 불멸의 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이것이 피조물 실존의 중지{中止}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록 가운데 더러는, 필사자가 죽는 행성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이것은 모두 맨션 세계들에서 정말로 일어난다.

2. **개별로 상승하는 계층의 필사자**. 인간의 개

These special resurrections are the occasion for mobilizing special groups of ascenders for specific service in the local universe plan of mortal ascension. There are both practical reasons and sentimental associations connected with these special resurrections.

49:6.3 (568.6)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 inhabited world, many are called to the mansion spheres at the special and the millennial resurrections, but most survivors are repersonalized at the inauguration of a new dispensation associated with the advent of a divine Son of planetary service.

49:6.4 (568.7) 1. *Mortals of the dispensational or group order of survival.* With the arrival of the first Adjuster on an inhabited world the guardian seraphim also make their appearance; they are indispensable to terrestrial escape. Throughout the life-lapse period of the sleeping survivors the spiritual values and eternal realities of their newly evolved and immortal souls are held as a sacred trust by the personal or by the group guardian seraphim.

49:6.5 (568.8) The group guardians of assignment to the sleeping survivors always function with the judgment Sons on their world advents. “He shall send his angels, and they sha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With each seraphim of assignment to the repersonalization of a sleeping mortal there functions the returned Adjuster, the same immortal Father fragment that lived in him during the days in the flesh, and thus is identity restored and personality resurrected. During the sleep of their subjects these waiting Adjusters serve on Divinington; they never indwell another mortal mind in this interim.

49:6.6 (569.1) While the older worlds of mortal existence harbor those highly developed and exquisitely spiritual types of human beings who are virtually exempt from the morontia life, the earlier ages of the animal-origin races are characterized by primitive mortals who are so immature that fusion with their Adjusters is impossible. The reawakening of these mortals is accomplished by the guardian seraphim in conjunction with an individualized portion of the immortal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49:6.7 (569.2) Thus are the sleeping survivors of a planetary age repersonalized in the dispensational roll calls. But with regard to the nonsalvable personalities of a realm, no immortal spirit is present to function with the group guardians of destiny, and this constitutes cessation of creature existence. While some of your records have pictured these events as taking place on the planets of mortal death, they all really occur on the mansion worlds.

49:6.8 (569.3) 2. *Mortals of the individual orders of*

별 진보는, 일곱 시공우주 궤도를 연속해서 달성하고 통과하는(곧 숙달하는) 것에 따라 측정된다. 필사자가 진보하는 이 궤도들은, 관련된 지적, 사회적, 영적, 및 시공우주_통찰력 가치의 수준이다. 필사자는 일곱째 궤도에서 시작하면서, 첫째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셋째에 도달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개인 운명 수호자를 즉시 소유한다. 이 필사자들은 섭리시대 또는 다른 심판과는 무관하게, 모론시아 생애에서 다시 인격화 될 것이다.

진화하는 세계의 초기 시절 내내, 셋째 날에 심판받으러 나아가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 운명 수호자가, 발전하는 필사자에게 배정되며, 그리하여 이 진화하는 피조물이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로, 자연사 이후 셋째 날에 첫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된다. 그런 경우에, **조울사**의 귀환(歸還)이 인간 혼을 깨나도록 신호하며,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한 섭리시대가 끝나면서 한 묶음으로 호출이 이뤄질 때와 아주 똑같은, 죽은 자들의 재인격화다.

개별 상승자들에게는 세 가지 집단이 있다: 덜 진보된 자들은, 시작하는 세계, 즉 첫 맨션 세계에 도착한다. 비교적 더 진보된 집단은, 이전에 행성에서 진보한 것에 따라서, 중간 맨션 세계 가운데 어느 곳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계층 중에서 가장 진보된 자는, 정말로 일곱째 모론시아 세계에서 모론시아 체험을 시작한다.

3. **보호관찰_즉_부모의존 계층의 상승 필사자**. 우주의 건지에서 볼 때, **조울사**의 도착이 정체성을 성립시키며, 내주했던 모든 존재는 응보의 출석접호를 받는다.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 현세의 삶은 불확실하며, 많은 사람이, **낙원** 생애를 선택하기 전에 어려서 죽는다. **조울사**가 내주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부모 중에서 더 진보된 영적 신분을 가진 쪽을 따라가며, 그리하여 특별 부활이 있을 때, 또는 1,000년마다 정기적인 섭리시대 출석접호가 있을 때, 셋째 날에,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로(보호관찰 육아원으로) 간다.

사고 조울사를 소유하기에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는, 부모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맨션 세계에 도착함과 동시에,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된다. 어린아이는 필사자로 태어날 때 육체적 독자성을 획득하지만, 생존 문제에서 본다면, **조울사**가 없는 모든 아이는 여전히 자기 부모에게 딸린 것으로 간주된다.

때가 되면 **사고 조울사**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며, 한편 보호관찰_부모의존 계층에서 생존하는 두 집단에 대한 스랍의 사역은, 부모 중에서 더 진보된 쪽의 것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든지, 또는 부모 중에서 하나만 생존하

ascension. The individual progress of human beings is measured by their successive attainment and traversal (mastery) of the seven cosmic circles. These circles of mortal progression are levels of associated intellectual, social, spiritual, and cosmic-insight values. Starting out in the seventh circle, mortals strive for the first, and all who have attained the third immediately hav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assigned to them. These mortals may be repersonalized in the morontia life independent of dispensational or other adjudications.

49:6.9 (569.4)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 evolutionary world, few mortals go to judgment on the third day. But as the ages pass, more and more th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are assigned to the advancing mortals, and thus increasing numbers of these evolving creatures are repersonalized on the first mansion world on the third day after natural death. On such occasions the return of the Adjuster signalizes the awakening of the human soul, and this is the repersonalization of the dead just as literally as when the en masse roll is called at the end of a dispensati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49:6.10 (569.5) There are three groups of individual ascenders: The less advanced land on the initial or first mansion world. The more advanced group may take up the morontia career on any of the intermediate mansion worlds in accordance with previous planetary progression. The most advanced of these orders really begin their morontia experience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49:6.11 (569.6) 3. *Mortals of the probationary-dependent orders of ascension*. The arrival of an Adjuster constitutes identity in the eyes of the universe, and all indwelt beings are on the roll calls of justice. But temporal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is uncertain, and many die in youth before choosing the Paradise career. Such Adjuster-indwelt children and youths follow the parent of most advanced spiritual status, thus going to the system finaliter world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third day, at a special resurrection, or at the regular millennial and dispensational roll calls.

49:6.12 (570.1) Children who die when too young to have Thought Adjusters are repersonalized on the finaliter world of the local systems concomitant with the arrival of either parent on the mansion worlds. A child acquires physical entity at mortal birth, but in the matter of survival all Adjusterless children are reckoned as still attached to their parents.

49:6.13 (570.2) In due course Thought Adjusters come to indwell these little ones, while the seraphic ministry to both groups of the probationary-dependent orders of survival is in general similar to that of the more advanced

는 경우에는 그 쪽의 것과 대등하다. 셋째 퀘도에 도달한 자에게는, 그 부모의 상태와 상관없이, 개인 수호자가 수여된다.

변경된 1차 및 2차 상승자 체제의, **조율사** 없는 자녀를 위해서, 비슷한 보호관찰 육아원들이 성좌의 완결성취자 구체와 우주 본부에 유지된다.

4. **변경된 2차 체제의 상승 필사자.** 이들은 중간쯤 진화한 세계에서 진보하는 인간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일곱 맨션 세계를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덜 완전하게 된 집단은 지역 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나는데, 맨션 세계들만 그냥 지나친다. 중간 집단은 성좌의 혼련 세계들로 가며; 그들은 지역 체계의 모론시아 체계 전부를 그냥 건너뛰다. 영적으로 투쟁하는 행성 시대로부터 더 오래 지나면, 많은 생존자가 성좌 본부에서 깨어나며, 거기서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여러 집단 중에서 누구든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지나쳐온 세계들에 교관으로서 되돌아가는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학생으로서 그냥 건너뛰 그 영역의 선생으로서 많은 체험을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필사자가 진보하는 규정된 노선을 따라서 **낙원**으로 나아간다.

5. **변경된 1차 체제의 상승 필사자.** 이 필사자들은 **조율사**와 융합된 형태의 진화 생명체에 속하지만, 매우 종종, 진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마지막 국면을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면제되며; **아들**에게 점유되도록 위임되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되고, 지방우주 본부에 있는 **주권자 아들** 현존 앞에 즉시 나타난다.

이들은 필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조율사**와 융합하는 필사자이며, **조율사**와 융합된 그런 인격은 모론시아 형태를 입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통과한다. 융합된 이 혼들은 **조율사**가 직접 운반함으로써, 높은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실로 가는데, 거기서, 진화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다른 모든 필사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첫 모론시아 의상(衣裳)을 받는다.

이 1차 변경 체제의 필사자 상승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떤 행성 계통에서든지 개인에게 적용되겠지만, 이런 상승은, 그들이 신성한 **아들**들의 수많은 체류에서 이득을 얻은 후에, 이 구체들 가운데 더 오래된 곳에서 더 자주 작용한다.

parent or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parent in case only one survives. Those attaining the third circle,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ir parents, are accorded personal guardians.

49:6.14 (570.3) Similar probation nurseries are maintained on the finaliter spheres of the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Adjusterless childre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modified orders of ascenders.

49:6.15 (570.4) 4. *Mortals of the secondary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These are the progressive human beings of the intermediate evolutionary worlds. As a rule they are not immune to natural death, but they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the seven mansion worlds.

49:6.16 (570.5) The less perfected group reawaken on the headquarters of their local system, passing by only the mansion worlds. The intermediate group go to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they pass by the entire morontia regime of the local system. Still farther on in the planetary ages of spiritual striving, many survivors awaken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there begin the Paradise ascent.

49:6.17 (570.6) But before any of these groups may go forward, they must journey back as instructors to the worlds they missed, gaining many experiences as teachers in those realms which they passed by as students. They all subsequently proceed to Paradise by the ordained routes of mortal progression.

49:6.18 (570.7) 5. *Mortals of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ascension.* These mortals belong to the Adjuster-fused type of evolutionary life, but they are most often representative of the final phases of human development on an evolving world. These glorified beings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they are submitted to Son seizure; they are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and appear immediately in the presence of the Sovereign Son on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49:6.19 (570.8) These are the mortals who fuse with their Adjusters during mortal life, and such Adjuster-fused personalities traverse space freely before being clothed with morontia forms. These fused souls go by direct Adjuster transit to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higher morontia spheres, where they receive their initial morontia investiture just as do all other mortals arriv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49:6.20 (570.9) This primary modified order of mortal ascension may apply to individuals in any of the planetary series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stages of the Adjuster-fusion worlds, but it more frequently functions on the older of these spheres after they have received the benefits of numerous sojourns of the divine Sons.

행성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확립되면, 변경된 1차 전환 체제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우주의 모론시아 세계들로 간다. 진보된 단계의 안정된 실존들을 따라 더 나아가서, 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 대부분이 이 등급에 포함될 때, 그 행성은 이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랫동안 빛과 생명에 정착된 이런 구체들에서, 자연사는 갈수록 드물게 된다.

[예루셈 행성 경영 학교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49:6.21 (570.10)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etary era of light and life, many go to the universe morontia worlds by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translation. Further along in the advanced stages of settled existence, when the majority of the mortals leaving a realm are embraced in this class, the planet is regarded as belonging to this series. Natural death becomes decreasingly frequent on these sphere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49:6.22 (57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the Jerusem School of Planetary Administration.]

제50편. 행성 왕자

⇨ 049

유랜시아 책

051 ⇨

II 부. 지방우주

제50편
행성 왕자

섹션

소개

1. 왕자의 사명
2. 행성의 경영
3.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4. 행성 본부와 학교
5. 점진적 문명화
6. 행성의 문화
7. 격리에 대한 보상

PAPER 50
THE PLANETARY PRINCES

SECTIONS

Introduction

1. Mission of the Princes
2. Planetary Administration
3. The Prince's Corporeal Staff
4. The Planetary Headquarters and Schools
5. Progressive Civilization
6. Planetary Culture
7. The Rewards of Isolation

소개

행성 왕자들은, **라노난덱 아들** 계층에 속하지만, 아주 전문화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개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 지방우주 **아들**들은, 2차 **라노난덱**으로서 **멜키세덱**의 보증을 받은 후에, 성좌 본부에 있는 그들 계층의 예비군에 배정된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체계 주권자**의 지시로 다양한 임무에 배정되며, 결국 **행성 왕자**로서 임명되고, 진화하는 인간거주 세계를 다스리도록 파견된다.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를 확립시키고 진화하는 지성 존재들을 개발시킨 이 행성에서 활동할, 한 경영자 우두머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체계 주권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주어진 행성에 통치자를 배정하는 문제에 **체계 주권자**가 처음으로 개입한다.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은, 아들신분을 갖는 이 계층의 행성 통치자를 배정받는다.

1. 왕자의 사명

INTRODUCTION

50:0.1 (572.1) WHILE belonging to the order of Lanonandek Sons, the Planetary Princes are so specialized in service that they are commonly regarded as a distinct group. After their Melchizedek certification as secondary Lanonandeks, these local universe Sons are assigned to the reserves of their order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rom here they are assigned to various duties by the System Sovereign and eventually commissioned as Planetary Princes and sent forth to rule the evolving inhabited worlds.

50:0.2 (572.2) The signal for a System Sovereign to act in the matter of assigning a ruler to a given planet is the reception of a request from the Life Carriers for the dispatch of an administrative head to function on this planet whereon they have established life and developed intelligent evolutionary beings. All planets which are inhabited by evolutionary mortal creatures have assigned to them a planetary ruler of this order of sonship.

1. MISSION OF THE PRINCES

행성 왕자와 그의 보좌관 형제들은, **낙원의 영원한 아들**이 시간과 공간의 하위 피조물에게 (육신화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인격화에 상당한다. 정말로,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영(靈)을 통해서 그 영역의 피조물과 접촉하지만, **행성 왕자**는 **낙원**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뻗어 나가는, 인격있는 **아들** 계층들 중에서 마지막 계층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 수호자 및 다른 천사 존재들의 인격자 안에서 매우 가까이 접근하며; **만유의 아버지**는 **신비 관찰자**들의 인격이전[人格以前] 현존으로서 사람 안에 거하지만; **행성 왕자**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다가가려는 마지막 수고를 나타낸다. **행성 왕자**는 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에서, 완벽한 신성(神性)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자인데,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자손인)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인) 신성한 사역자로부터 태어난다.

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의 왕자는, 충성스런 도우미와 보좌관 단체,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역하는 영으로 둘러싸인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지도하는 단체는, 행성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선천적으로 동정심을 갖고 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은 계층의 체계 경영자여야 한다. 그리고 진화 세계에 동정심을 가진 통치자를 마련해 주려는 이 모든 노력에는, 인간에 가까운 이 인격체들이 그들 자신의 정신을 **최상급 통치자**들의 뜻보다 높게 고양시킴으로써 타락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늘어난다.

이 **아들**들은, 개별 행성에서 신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주 외롭게 있으므로 엄중한 시험을 받으며, **네바돈**은 몇 차례 반역이 발발하는 불운을 겪어 왔다. **체계 주권자**와 **행성 왕자**들을 창조할 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개념을 인격화시키는 일이 발생하며, 그리하여 한 개인이 자신을 중요시여김에 따라서 균형 감각을 잃는 위험성이 점점 증대되고, 수많은 계층의 신성한 존재들의 가치기준과 관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얻는 그들의 권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버지**가 지방우주에 직접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한, 이 **아들**들 모두에게 신앙과 충성심에 대한 어떤 시험이 된다.

그러나 이 세계 왕자들이 인간거주 구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사명에서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은 나중에, 그 세계의 원시인에게 비교적 높은 형태의 피조물 생명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오는 **물질 아들**의 사명을 크게 촉진시킨다. 또한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을 위해서 그 행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아들**들은, 그 후에 세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섭리시대들을 개시하기 위해서 온다.

50:1.1 (572.3)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assistant brethren represent the nearest personalized approach (aside from incarnation) that the Eternal Son of Paradise can make to the lowly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rue, the Creator Son touches the creatures of the realms through his spirit, but the Planetary Prince is the last of the orders of personal Sons extending out from Paradise to the children of men. The Infinite Spirit comes very near in the persons of the guardians of destiny and other angelic beings; the Universal Father lives in man by the prepersonal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s; but the Planetary Prince represents the last effort of the Eternal Son and his Sons to draw near you. On a newly inhabited world the Planetary Prince is the sole representative of complete divinity, springing from the Creator Son (the offspring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e Divine Minister (the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50:1.2 (572.4) The prince of a newly inhabited world is surrounded by a loyal corps of helpers and assistants and by large numbers of the ministering spirits. But the directing corps of such new worlds must be of the lower orders of the administrators of a system in order to be innately sympathetic with, and understanding of, the planetary problems and difficulties. And all of this effort to provide sympathetic rulership for the evolutionary worlds entails the increased liability that these near-human personalities may be led astray by the exaltation of their own minds over and above the will of the Supreme Rulers.

50:1.3 (572.5) Being quite alone as representatives of divinity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se Sons are tested severely, and Nebadon has suffered the misfortune of several rebellions. In the creation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there occurs the personalization of a concept that has been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ere is an increasing danger of losing the sense of proportion as to one's self-importance and a greater likelihood of failure to keep a proper grasp of the values and relationships of the numerous orders of divine beings and their gradations of authority. That the Father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the local universe also imposes a certain test of faith and loyalty on all these Sons.

50:1.4 (573.1) But not often do these world princes fail in their missions of organizing and administering the inhabited spheres, and their success greatly facilitates the subsequent missions of the Material Sons, who come to engraft the higher forms of creature life on the primitive men of the worlds. Their rule also does much to prepare the planets for the Paradise Sons of God, who subsequently come to judge the worlds and to inaugurate successive dispensations.

2. 행성의 경영

모든 **행성 왕자**는, **미가엘**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의 우주 경영 관할권 아래에 있으며, 한편 직속 권한에서는 **체계 주권자**의 행정 명령에 종속된다.

행성 왕자들은, 예전에 자신의 교관 및 후원자였던 **멜기세덱**들의 조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보조를 요청하도록 임의로 요구받지는 않으며, 그런 도움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멜기세덱**들은 행성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계 통치자들은 24조언자의 충고를 따를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 체계의 증여 세계들로부터 소집된다. **사타니아**에서 현재 이 조언자들은 모두 **유란시아** 원주민이다. 그리고 성좌 본부에 있는 비슷한 70인 협의회 역시, 그 영역들의 진화 존재들로부터 선택된다.

진화하는 여러 행성에서 초기에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부분 독재적으로 통치된다. **행성 왕자**는 행성 조력자 단체 가운데서 특화된 집단의 보좌관들을 조직한다. 그들은 대개 열두 명의 최고 협의회를 두지만, 이것은 세계마다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선택되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행성 왕자**는 아들신분을 갖는, 자신의 집단 가운데 셋째 계층에서 하나 이상, 그리고 간혹 어떤 세계들에서는 자신의 계층인 2차 **라노난덱** 동역자 한 명을 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한 세계 통치자의 전체 참모진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고도로 진화된 존재 및 다른 세계들에서 상승한 필자자들로 구성된다. 그런 참모진은 평균 약 1,000명이며, 그 행성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 도우미 단체는 10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 더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행성 왕자**가 자신의 형제, 즉 **체계 주권자**에게 요청만 하면 되며, 그 청원은 즉시 승인된다.

행성들은, 본질, 조직, 및 경영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사법을 담당하는 법정을 마련한다. 지방우주 사법 체계는 **행성 왕자**의 법정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개인 참모진 중에서 한 요원이 관장하며; 그런 법정의 판결은, 고귀하게 아버지답고 자유재량의 입장을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의 규칙을 벗어날 만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고등 법정에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왕자의 세계 영토의 직무는 주로 그의 개인적 재량에 따라서 조정된다.

2. PLANETARY ADMINISTRATION

50:2.1 (573.2) All Planetary Princes are under the univers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Gabriel, the chief executive of Michael, while in immediate authority they are subject to the executive mandates of the System Sovereigns.

50:2.2 (573.3) The Planetary Princes may at any time seek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their former instructors and sponsors, but they are not arbitrarily required to ask for such assistance, and if such aid is not voluntarily requested, the Melchizedeks do not interfere with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These world rulers may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advice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ssembled from the bestowal worlds of the system. In Satania these counselors are at present all natives of Urantia. And there is an analogous council of seventy at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so selected from the evolutionary beings of the realms.

50:2.3 (573.4) The rule of the evolutionary planets in their early and unsettled careers is largely autocratic. The Planetary Princes organize their specialized groups of assistants from among their corps of planetary aids. They usually surround themselves with a supreme council of twelve, but this is variously chosen and diversely constituted on the different worlds. A Planetary Prince may also have as assistants one or more of the third order of his own group of sonship and sometimes, on certain worlds, one of his own order, a secondary Lanonandek associate.

50:2.4 (573.5) The entire staff of a world ruler consists of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certain types of higher evolved beings and ascending mortals from other worlds. Such a staff averages about one thousand, and as the planet progresses, this corps of helpers may be increased up to one hundred thousand or more. At any time need is felt for more helpers, the Planetary Princes have only to make request of their brother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etition is granted forthwith.

50:2.5 (573.6) Planets vary greatly in nature and organization and in administration, but all provide for tribunals of justice. The judicial system of the local universe has its beginnings in the tribunals of a Planetary Prince, which are presided over by a member of his personal staff; the decrees of such courts reflect a highly fatherly and discretionary attitude. All problems involving more than the regulation of the planetary inhabitants are subject to appeal to the higher tribunals, but the affairs of his world domain are largely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discretion of the prince.

순회하는 여러 화해자 위원회가 행성의 법정을 돕고 보조하며, 영 통제관 및 물리 통제관이 이 화해자들의 조사 결과에 지배된다. 그러나 **성좌 아버지**의 승낙 없이 독단적 집행{執行}이 수행되는 일은 결코 없는데,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행성에 배정된 통제관과 변형자들 역시, 천사 및 기타 천상의 존재 계층들과 함께, 후자{後者}의 이 인격체들을 필사 피조물에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스랍 도우미, 그리고 심지어 **멜기세덱**들도, 진화 세계의 거주민에게 자신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행성 왕자** 참모진의 일부로서 필사 상승자들을 체계 본부로부터 데려오는 주요 이유는, 그 영역의 거주민과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3.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세계로 갈 때, **행성 왕자**는 대개 지역 체계 본부에서 자원하는 한 집단의 상승하는 존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상승자들은 초기 인종 개량 작업에 충고자 및 도우미로서 왕자를 따라간다. 이 물질 도우미 단체는 왕자와 그 세계 인종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왕자**인 **캘리개스차**는 100명으로 구성된 그런 도우미 단체와 동행했다.

그런 자원하는 보좌관들은 체계 본부 시민이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내주하는 **조울사**와 융합되지 않았다. 그런 자원 봉사자들의 **조울사** 상태는, 이 모론시아 진보자들이 예전의 물질 상태로 잠시 돌아가 있는 동안, 체계 본부에서 고정된 거주지에 속한 채 남아있다.

형체 설계자인 **생명 운반자**들이 새 육체를 제공하고, 그런 자원자들은 행성에 머무는 동안 이 육체를 차지한다. 이 인격체 형태는, 그 영역의 일반 질병에 면역력을 갖지만, 초기의 모론시아 몸처럼, 기계적 성질에 속하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체에 도착할 때, 그 다음 판결과 연관되어, 대개 행성으로부터 옮겨진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다양한 임무를, 함께 낳은 후손에게, 그리고 어떤 우세한 토착민 자원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다. 왕자의 이 도우미들이 도착 인종들 중에서 뛰어난 집단과 짝짓도록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런 후손이 대개 그들을 계승한다.

행성 왕자의 이 보좌관들은, 그 세계의 인종

50:2.6 (574.1) The roving commissions of conciliators serve and supplement the planetary tribunals, and both spirit and physical controllers are subject to the findings of these conciliators. But no arbitrary execution is ev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stellation Father, for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50:2.7 (574.2) The controllers and transformers of planetary assignment are also able to collaborate with angels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 rendering these latter personalities visible to mortal creatures. On special occasions the seraphic helpers and even the Melchizedeks can and do make themselves visible to the inhabitant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principal reason for bringing mortal ascenders from the system capital as a part of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i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 inhabitants of the realm.

3. THE PRINCE'S CORPOREAL STAFF

50:3.1 (574.3) On going to a young world, a Planetary Prince usually takes with him a group of volunteer ascending beings from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These ascenders accompany the prince as advisers and helpers in the work of early race improvement. This corps of material helpers constitute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prince and the world races. The Urantia Prince, Caligastia, had a corps of one hundred such helpers.

50:3.2 (574.4) Such volunteer assistants are citizens of a system capital, and none of them have fused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The status of the Adjusters of such volunteer servers remains as of the residential standing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ile these morontia progressors temporarily revert to a former material state.

50:3.3 (574.5) The Life Carriers, the architects of form, provide such volunteers with new physical bodies, which they occupy for the periods of their planetary sojourn. These personality forms, while exempt from the ordinary diseases of the realms, are, like the early morontia bodies, subject to certain accidents of a mechanical nature.

50:3.4 (574.6) The prince's corporeal staff are usually removed from the planet in connection with the next adjudication at the time of the second Son's arrival on the sphere. Before leaving, they customarily assign their various duties to their mutual offspring and to certain superior native volunteers. On those worlds where these helpers of the prince have been permitted to mate with the superior groups of the native races, such offspring usually succeed them.

50:3.5 (574.7) These assistants to the Planetary

들과 짝짓는 일이 거의 없지만, 반드시 자기들끼리 짝짓는다. 이 결합에서 두 부류의 존재가 생겨나는데: 1차 유형의 중도 피조물과, 어떤 고귀한 유형의 물질 존재가 그들이며, 후자는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행성으로부터 옮겨진 후에, 왕자의 참모진에 계속 배속돼 있다. 이 자녀들은 특정한 응급 상황 이외에는 필사자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럴 때에도 오직 **행성 왕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이뤄진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자녀는--곧 육체전환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들의 시대와 세대{世代}에서 우수한 인종에 속하는 신분을 갖는다. **행성 왕자**의 약간물질적인 이 조력자들의 모든 자손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한다.

왕자의 섭리시대가 끝날 때, 이 “되돌아온 참모진”이 **낙원** 생애의 재개를 위해 체계 본부로 복귀할 때가 되면, 이 상승자들은 물질 육신을 돌려줄 목적으로 **생명 운반자**들에게 온다. 그들은 변환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자신의 필사의 옷을 벗고 모론시아 형태를 입은 채로 깨어나서, 체계 본부로 돌아가는 스랍 운송을 위해 준비를 갖추며, 분리돼 있던 그들의 **조율사**들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예루셈** 계층보다 온전한 한 섭리시대를 뒤쳐졌지만, 독특하고 이례적인 체험을 했고, 이것은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에서 희귀한 일련의 사건이다.

4. 행성 본부와 학교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훈련하고 교양을 가르치는 여러 행성 학교를 일찍부터 조직하는데, 진화 인종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이 방법을 그들의 민족에게 가르치도록 파송된다. **왕자**의 이 학교들은 물질로 지어진 행성 본부에 자리잡는다.

육체전환 참모진이, 이 본부 도시의 설립과 관련된 물리적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 **행성 왕자**의 초기 시대에, 그런 본부 도시들, 즉 정착지들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매우 다르다. 후세와 비교할 때 이 정착지들은 단순한데, 광물 장식과 비교적 진보된 물질 구조물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산 본부 주위에 집중되는 **아담** 체제와는 현저히 다른데, 이 동산 본부로부터 인종들을 위한 그들의 업무는 우주 **아들**들의 둘째 섭리시대 동안 수행된다.

너희 세계에서 본부 정착지에는, 모든 인간 거주지가 풍부한 땅과 함께 제공됐다. 비록 멀리

Prince seldom mate with the world races, but they do always mate among themselves. Two classes of beings result from these unions: the primary type of midway creatures and certain high types of material beings who remain attached to the prince's staff after their parents have been removed from the planet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ese children do not mate with the mortal races except in certain emergencies and then only by dir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 In such an event, their children — the grandchildren of the corporeal staff — are in status as of the superior races of their day and generation. All the offspring of these semimaterial assistant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Adjuster indwelt.

50:3.6 (575.1) At the end of the prince's dispensation, when the time comes for this “reversion staff” to be returned to the system headquarters for the resumption of the Paradise career, these ascenders present themselves to the Life Carriers for the purpose of yielding up their material bodies. They enter the transition slumber and awaken delivered from their mortal investment and clothed with morontia forms, ready for seraphic transportation back to the system capital, where their detached Adjusters await them. They are a whole dispensation behind their Jerusem class, but they have gained a unique and extraordinary experience, a rare chapter in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4. THE PLANETARY HEADQUARTERS AND SCHOOLS

50:4.1 (575.2) The prince's corporeal staff early organize the planetary schools of training and culture, wherein the cream of the evolutionary races are instructed and then sent forth to teach these better ways to their people. These schools of the prince are located at the material headquarters of the planet.

50:4.2 (575.3) Much of the physical work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is headquarters city is performed by the corporeal staff. Such headquarters cities, or settlements, of the early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very different from what a Urantia mortal might imagine. They are, in comparison with later ages, simple, being characterized by mineral embellishment and by relatively advanced material construction. And all of this stands in contrast with the Adamic regime centering around a garden headquarters, from which their work in behalf of the races is prosecuted during the second dispensation of the universe Sons.

50:4.3 (575.4) In the headquarters settlement on your world every human habitation was provided with

있는 부족들이 계속 사냥하고 음식을 찾아다녔지만, **왕자**의 학교에 있는 학생과 선생들은 모두 농업과 원예에 종사했다. 시간은 다음과 같은 일들 사이에 거의 똑같이 분배됐다:

1. **육체 노동.** 집을 짓고 장식하는 것과 관련 해 땅을 조성함.

2. **사회 활동.** 놀이 실행 및 문화적 사고 모임.

3. **교육적 적용.** 전문화된 계층 훈련으로 보충된, 가족 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지침.

4. **직업 훈련.** 결혼 및 가정 설립 학교, 예술 및 공작 훈련 학교, 그리고 선생을 훈련시키기 위한 --세속적, 문화적, 및 종교적-- 학급들.

5. **영적 교양.** 선생 협회, 유년 시대 및 젊은이 집단들의 계몽, 그리고 양자로 삼은 토착민 자녀를 그 민족에게 보낼 선교사로 양성함.

행성 왕자는 필사 존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의 참모진인 약간물질 존재들의 설명을 믿는 것이 신앙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나 교양과 훈련을 맡은 이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에 잘 맞춰져 있으며, 이 다양한 배움의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사람의 종족들 가운데서 예민하고 칭찬할만한 경쟁이 곧 전개된다.

그런 교양과 성취를 이루는 세계 중심지로부터 온 민족에게, 고양시키고 개화시키는 영향이 점차 퍼져 나가는데, 진화 인종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형시킨다. 그동안에 주변의 민족들 중에서, 왕자의 학교에서 양자가 되고 훈련을 거친, 교양을 갖추고 영성화 된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집단으로 돌아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거기서 새롭고도 유능한 배움과 문화의 중심지들을 계속 세우고, 왕자의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해 나간다.

유란시아에서는 행성의 진보와 문화 증진을 위한 이 계획이 잘 진척됐고, 아주 만족스럽게 진행됐는데, 모든 일은, **캘리개스차**가 **루시퍼**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히 갑작스럽고 가장 수치스런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나와 동일한 계층의 아들신분에 속하는 존재인 **캘리개스차**의 냉담한 배반을 내가 전해 들었던 것은, 이 반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는 궁리 끝에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당시에 운영되던 **유란시아** 행성 학교 전체에 제공된 지침을 체계적으로 왜곡시켰고, 교훈 속에 독을 섞었다. 이 학교들의 파멸은 신속하고 전면적이었다.

abundance of land. Although the remote tribes continued in hunting and food foraging, the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Prince's schools were all agriculturists and horticulturists. The time was about equally divided between the following pursuits:

50:4.4 (575.5) 1. *Physical labor.* Cultivation of the soil, associated with home building and embellishment.

50:4.5 (575.6) 2. *Social activities.* Play performances and cultural social groupings.

50:4.6 (575.7) 3. *Educational application.* Individual instruction in connection with family-group teaching, supplemented by specialized class training.

50:4.7 (575.8) 4. *Vocational training.* Schools of marriage and homemaking, the schools of art and craft training, and the classes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 secular, cultural, and religious.

50:4.8 (575.9) 5. *Spiritual culture.* The teacher brotherhood, the enlightenment of childhood and youth groups, and the training of adopted native children as missionaries to their people.

50:4.9 (575.10) A Planetary Prince is not visible to mortal beings; it is a test of faith to believe the representations of the semimaterial beings of his staff. But these schools of culture and training are well adapted to the needs of each planet, and there soon develops a keen and laudatory rivalry among the races of men in their efforts to gain entrance to these various institutions of learning.

50:4.10 (575.11) From such a world center of culture and achievement there gradually radiates to all peoples an uplifting and civilizing influence which slowly and certainly transforms the evolutionary races. Meantime the educated and spiritualized children of the surrounding peoples who have been adopted and trained in the prince's schools are returning to their native groups and,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are there establishing new and potent centers of learning and culture which they carry on according to the plan of the prince's schools.

50:4.11 (576.1) On Urantia these plans for planetary progress and cultural advancement were well under way, proceeding most satisfactorily, when the whole enterprise was brought to a rather sudden and most inglorious end by Caligastia's adherence to the Lucifer rebellion.

50:4.12 (576.2) It was one of the most profoundly shocking episodes of this rebellion for me to learn of the callous perfidy of one of my own order of sonship, Caligastia, who, in deliberation and with malice aforethought, systematically perverted the instruction and poisoned the teaching provided in all the Urantia planetary schools in operation at that time. The wreck of these schools was speedy and complete.

왕자의 물질화 된 참모진과 관련된 상승자들의 자손 중에서 다수는 계속 충성했는데, **캘리개스차**의 반열에서 탈퇴했다. 충성스런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의 **멜키세덱** 관재인들의 격려를 받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후일에 진리와 정의에 대한 행성 개념들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충성스런 이 복음전도자들이 한 일은, **유란시아**에서 영적 진리 전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도움이 됐다. 이 용감한 혼들과 그 후손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살아남도록 지켰고, 세계 인종들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행성에서 연속으로 다스린다는 섭리시대 개념을 보존했다.

5. 점진적 문명화

인간거주 세계의 충성스런 왕자는, 자신이 원래 배정된 행성에 영원히 배속된다. **낙원 아들**들과 그들의 섭리시대들은 오고갈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행성 왕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영역의 통치자로서 존속한다. 그의 업무는, 더 높은 **아들**들의 사명으로부터 상당히 독립돼 있는데, 행성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문명의 진보는 어떤 두 행성에서도 전혀 똑같지 않다. 필사자 진화가 전개되는 세부내용은 수많은 다른 세계마다 매우 다르다. 물리적, 지적, 및 사회적 계층에 따른 행성 발달이 이렇게 많이 다양함에도, 모든 진화 구체는 윤곽이 뚜렷한 어떤 방향으로 진보한다.

행성 왕자의 인자한 통치 아래, **물질 아들**들로 인해 증대되고, **낙원 아들**들의 정기적 사명이 끼어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평범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인종들은,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일곱 시기를 연달아 거치게 될 것이다:

1. **음식물 시대.** 인간이 되기 이전의 피조물과 여명기의 원시 인종들은 주로 먹을거리 문제로 근심한다. 진화하는 이 존재들은, 깨어 있는 자기 시간을, 먹을거리를 찾거나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투쟁하는 일에 소모한다. 먹을거리를 찾는 일은, 이어지는 문명의 이런 초기 선조의 머리 속에서 가장 우선한다.

2. **안전 시대.** 원시 사냥꾼은, 먹을거리를 찾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를 갖게 되는 즉시, 자신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일에 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 싸우는 기법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거주지가 점점 더 보강되고, 공통으로 가진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질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음으로써, 씨족들이 단결한다. 자아_유지가 해결되면, 자아_보존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3. **물질적으로_안락한 시대.** 먹을거리 문제가

50:4.13 (576.3) Many of the offspring of the ascenders of the Prince's materialized staff remained loyal, deserting the ranks of Caligastia. These loyalists were encouraged by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and in later times their descendants did much to uphold the planetary concept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he work of these loyal evangels helped to prevent the total obliteration of spiritual truth on Urantia. These courageous souls and their descendants kept alive some knowledge of the Father's rule and preserved for the world races the concept of the successive planetary dispensations of the various orders of divine Sons.

5. PROGRESSIVE CIVILIZATION

50:5.1 (576.4) The loyal princes of the inhabited worlds ar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lanet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Paradise Sons and their dispensations may come and go, but a successful Planetary Prince continues on as the ruler of his realm. His work is quite independent of the missions of the higher Sons, being 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planetary civilization.

50:5.2 (576.5)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s hardly alike on any two planets. The details of the unfoldment of mortal evolution are very different on numerous dissimilar worlds. Notwithstanding these many diversifications of planetary development along physical, intellectual, and social lines, all evolutionary spheres progress in certain well-defined directions.

50:5.3 (576.6) Under the benign rule of a Planetary Prince, augmented by the Material Sons and punctuated by the periodic missions of the Paradise Sons, the mortal races on an average world of time and space will successively pass through the following seven developmental epochs:

50:5.4 (576.7) 1. *The nutrition epoch.* The prehuman creatures and the dawn races of primitive man are chiefly concerned with food problems. These evolving beings spend their waking hours either in seeking food or in fighting, offensively or defensively. The food quest is paramount in the minds of these early ancestors of subsequent civilization.

50:5.5 (576.8) 2. *The security age.* Just as soon as the primitive hunter can spare any time from the search for food, he turns this leisure to augmenting his security. More and more attention is devoted to the technique of war. Homes are fortified, and the clans are solidified by mutual fear and by the inculcation of hate for foreign groups. Self-preservation is a pursuit which always follows self-maintenance.

50:5.6 (577.1) 3. *The material-comfort era.* After food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후에, 개인의 안락함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가 시간이 활용된다. 인간의 활동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사치품과 필수품이 경쟁한다. 그런 시대는, 횡포, 아량 없음, 탐욕, 및 방탕함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종들 중에서 열등한 구성원들이 무절제와 잔인성으로 기울어진다. 쾌락을 추구하는 허약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더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에게 서서히 정복된다.

4. *지식과 지혜의 추구.* 먹을거리, 안전, 쾌락, 및 여가 시간은, 문화 발달과 지식 전파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지식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지혜를 가져오고, 어떤 문화가 경험을 얻음으로 어떻게 유익을 얻고 개선하는지를 배우게 될 때, 문명이 실제로 도래한다. 먹을거리, 안전, 및 물질적 안락함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많은 사람이 지식에 굶주리고 지혜를 갈망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행함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이 이 시절의 표어다.

5. *철학 및 형제관계의 시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으로 유익을 얻기 시작할 때, 필사자는 철학적인 존재가 된다--그들은 속으로 추론하기 시작하고, 차이를 분별하여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게 되며, 그런 시대의 필사자는 정말로 도덕적 존재가 돼간다. 현명한 도덕적 존재는, 그런 진보하는 세계에 인간의 형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윤리적 및 도덕적 존재는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6. *영적 투쟁의 시대.*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육체적, 지적, 및 사회적 발달 단계를 통과하면, 영적 만족과 시공우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도록 재촉하는 그런 개인적 통찰력 수준에 곧 도달한다. 종교는 두려움과 미신의 감정적 범위로부터, 시공우주의 지혜와 개인의 영적 체험이라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을 완성해 간다. 교육은 목적 달성을 열망하고, 문화는 시공우주 관계와 참된 가치를 파악한다. 진화하는 그런 필사자는, 진정으로 교양을 갖췄고, 정말로 숙련됐으며,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안다.

7. *빛과 생명의 시대.* 이때는 육신적 안전, 지적 확장,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의 시대들이 이어지는 전성기다. 인간의 이런 업적은, 이제 시공우주 통일과 이타적{利他的} 봉사에 혼합되고, 결합되고, 조정된다. 유한한 자연과 물질 재능의 한계 내에서, 진보하는 세대들이 진화로 달성할 가능성에 어떤 제한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 세대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숭고하고 안정된 이 세계를 계승하면서 살아간다.

problems have been partially solved and some degree of security has been attained, the additional leisure is utilized to promote personal comfort. Luxury vies with necessity in occupying the center of the stage of human activities. Such an age is all too often characterized by tyranny, intolerance, gluttony, and drunkenness. The weaker elements of the races incline towards excesses and brutality. Gradually these pleasure-seeking weaklings are subjugated by the more strong and truth-loving elements of the advancing civilization.

50:5.7 (577.2) 4. *The quest for knowledge and wisdom.* Food, security, pleasure, and leisure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spread of knowledge. The effort to execute knowledge results in wisdom, and when a culture has learned how to profit and improve by experience, civilization has really arrived. Food, security, and material comfort still dominate society, but many forward-looking individuals are hungering for knowledge and thirsting for wisdom. Every child 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learn by doing; education is the watchword of these ages.

50:5.8 (577.3) 5. *The epoch of philosophy and brotherhood.* When mortals learn to think and begin to profit by experience, they become philosophical — they start out to reason within themselves and to exercise discriminative judgment. The society of this age becomes ethical, and the mortals of such an era are truly becoming moral beings. Wise moral beings are capable of establishing human brotherhood on such a progressing world. Ethical and moral beings can learn how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golden rule.

50:5.9 (577.4) 6. *The age of spiritual striving.* When evolving mortals have passed through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ocial stages of development, sooner or later they attain those levels of personal insight which impel them to seek for spiritual satisfactions and cosmic understandings. Religion is completing the ascent from the emotional domains of fear and superstition to the high levels of cosmic wisdom and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Education aspires to the attainment of meanings, and culture grasps at cosmic relationships and true values. Such evolving mortals are genuinely cultured, truly educated, and exquisitely God-knowing.

50:5.10 (577.5) 7. *The era of light and life.* This is the flowering of the successive ages of physical security, intellectual expansion, social culture,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se human accomplishments are now blended, associated, and co-ordinated in cosmic unity and unselfish service. Within the limitations of finite nature and material endowments there are no bounds set upon the possibilities of evolutionary attainment by the advancing generations who successively live

행성 왕자들은, 세계 역사에서 이어지는 여러 섭리시대와, 행성이 진보하는 진취적 시기들 내내 자신의 구계에서 근무한 후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 **행성 주권자** 지위로 승진된다.

6. 행성의 문화

유란시아의 격리된 상태가, **사타니아**에 있는 너희 이웃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의 공개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설명을 제시할 때, 우리는 행성이 고립됨으로 인해, 그리고 체계가 격리됨으로 인해 제한 받는다.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를 교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제약조건들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너희는 평범한 진화 세계의 진보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런 세계의 정력을 **유란시아**의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문명의 발달은, 영적으로 격리되는 불운을 겪어온 다른 세계들의 발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주의 충성스런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의 행성은 지적 진보와 영적 달성의 모든 국면에서 가장 혼돈돼 있고 크게 뒤떨어진 것 같다.

너희 행성이 불운을 겪었기 때문에, **유란시아인**은 정상 세계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매우 많이 방해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진화 세계들을,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세계조차, 그곳의 생활이 어떤 한가한 꽃밭 같은 구체일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자 인종들의 첫 생애에는 항상 투쟁이 따라온다. 노력과 결단은, 생존 가치를 획득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문화는 정신이 우수할 것을 전제로 하며; 문화는 정신이 고상해지지 않으면 증진될 수 없다. 우세한 지능은 고귀한 문화를 추구할 것이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길을 발견할 것이다. 열등한 정신들은, 가장 높은 문화가 준비된 상태로 자신에게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경멸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이 신성한 **아들**들의 이어지는 사명에 달려있고, 각 섭리시대 동안 그들이 계몽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있다.

루시퍼 반역 때문에, 20만 년 동안이나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가 **노라티아덱**의 영적 금지령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죄와 분리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대가 요구된다. 너희 세계는, 반역한 **행성 왕자**와, 직무에 태만한 **물질 아들**의 이중적 비극의 결과로, 불규칙적이고 파란만장한 진로를 여전히 계속 따라가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것조차, 세상의 초기 경

upon these supernal and settled worlds of time and space.

50:5.11 (577.6) After serving their spheres through successive dispensations of world history and the progressing epochs of planetary progress, the Planetary Princes are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s upon the inauguratio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6. PLANETARY CULTURE

50:6.1 (578.1) The isolation of Urantia renders it impossible to undertake the presentation of many details of the life and environment of your Satania neighbors. In these presentations we are limited by the planetary quarantine and by the system isolation. We must be guided by these restrictions in all our efforts to enlighten Urantia mortals, but in so far as is permissible, you have been instructed in the progress of an average evolutionary world, and you are able to compare such a world's career with the present state of Urantia.

50:6.2 (578.2)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on Urantia has not differed so greatly from that of other worlds which have sustained the misfortune of spiritual isolation. But when compared with the loyal worlds of the universe, your planet seems most confused and greatly retarded in all phases of intellectu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50:6.3 (578.3) Because of your planetary misfortunes, Urantians are prevented from understanding very much about the culture of normal worlds. But you should not envisage the evolutionary worlds, even the most ideal, as spheres whereon life is a flowery bed of ease. The initial life of the mortal races is always attended by struggle. Effort and decision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acquirement of survival values.

50:6.4 (578.4) Culture presupposes quality of mind; culture cannot be enhanced unless mind is elevated. Superior intellect will seek a noble culture and find some way to attain such a goal. Inferior minds will spurn the highest culture even when presented to them ready-made. Much depends, also, upon the successive missions of the divine Sons and upon the extent to which enlightenment is received by the ages of their respective dispensations.

50:6.5 (578.5) You should not forget that for two hundred thousand years all the worlds of Satania have rested under the spiritual ban of Norlatiadek in consequence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it will require age upon age to retrieve the resultant handicaps of sin and secession. Your world still continues to pursue an irregular and checkered career as a result of the double tragedy of a rebellious Planetary Prince and a defaulting Material Son. Even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영에서 있었던 이 심각한 실수 때문에 현세에 발생한 결과를, 즉시 해결하지 못했다.

on Urantia did not immediately set aside the temporal consequences of these serious blunders in the earlier administration of the world.

7. 격리에 대한 보상

언뜻 생각하기에는,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 및 **딸** 같은 그런 초인적 인격체들의 유익한 현존과 영향력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유란시아** 및 관련된 격리된 세계들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체들의 격리는, 그 인종들에게 신앙을 실천하도록, 그리고 시공우주가 신방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눈으로 보거나 어떤 다른 물질적 이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뛰어난 신뢰를 개발하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반역의 결과로 고립된 세계들에서 태어난 필사 피조물이 지극히 운이 좋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우리는, 시공우주의 이행업무에 배정되는 수많은 특별한 임무가, 그런 상승자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맡겨지는 것을 발견해 왔는데, 그 이행업무의 성취에는 명백한 신념과 탁월한 확신이 필수적이다.

이런 격리된 세계에서 온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주 지역을 차지하며, **아곤돈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격리됐을 때 견디며, 홀로 있을 때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을 의미한다. 아곤돈터라는 이 기능적 분류는, 지방우주에서 상승하고 연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내내 지속되며;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라지지만, **낙원**에 도착할 때 즉시 다시 나타나고,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에서 분명하게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완결성취자 신분을 갖는 **아곤돈터**인데,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처음 일어난 반역에 말려든, 어느 고립된 구체에서 생존했다.

낙원 생애 내내,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이 노력을 따라다닌다. 그런 보상은 개인을 평균보다 뛰어나게 하고, 특이한 피조물 체험을 제공하며, 완결성취자들의 집합체에서 융통성 있는 궁극적 실행에 기여한다.

[**예비 단체의 2차 라노난덱 아들이** 제시했음]

7. THE REWARDS OF ISOLATION

50:7.1 (578.6) On first thought it might appear that Urantia and its associated isolated worlds are most unfortunate in being deprived of the beneficent presence and influence of such superhuman personalities as a Planetary Prince and a Material Son and Daughter. But isolation of these spheres affords their rac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exercise of faith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peculiar quality of confidence in cosmic reliability which is not dependent on sight or any other material consideration. It may turn out, eventually, that mortal creatures hailing from the worlds quarantined in consequence of rebellion are extremely fortunate. We have discovered that such ascenders are very early intrusted with numerous special assignments to cosmic undertakings where unquestioned faith and sublime confidence are essential to achievement.

50:7.2 (579.1) On Jerusem the ascenders from these isolated worlds occupy a residential sector by themselves and are known as the *agondonters*, meaning evolutionary will creatures who can believe without seeing, persevere when isolated, and triumph over insuperable difficulties even when alone. This functional grouping of the *agondonters* persists throughout the ascens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traversal of the superuniverse; it disappears during the sojourn in Havona but promptly reappears upon the attainment of Paradise and definitely persists in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Tabamantia is an *agondonter* of finaliter status, having survived from one of the quarantined spheres involved in the first rebellion ever to take place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50:7.3 (579.1) All through the Paradise career, reward follows effort as the result of causes. Such rewards set off the individual from the average, provide a differential of creature experience, and contribute to the versatility of ultimate performances in the collective body of the finaliters.

50:7.4 (579.1) [Presented by a Secondary Lanonandek Son of the Reserve Corps.]

제51편. 행성의 아담

⇨ 050

유랜시아 책

052 ⇨

II 부. 지방우주

제51편
행성의 아담

섹션

소개

1.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기원과 본성
2. 행성 아담의 운반
3. 아담의 사명
4. 진화하는 여섯 인종
5. 인종 혼합--아담의 피 증여
6. 에덴의 체제
7. 연합된 경영

소개

행성 왕자의 섭리시대 동안에, 원시인은 자연스런 진화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며, 이 생물학적 달성은, 아들신분 가운데 둘째 계층인 생물학적 개량자들을 그런 세계에 보내달라고, **체계 주권자**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 **아들**들은 --**물질 아들**과 **딸**로서-- 둘이기 때문에, 행성에는 대개 **아담**과 **이브**로 알려진다. **사타니아**의 원본 **물질 아들**은 **아담**이며, 체계의 세계들에게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가는 자들은, 독특한 그들 계층 중에서 첫째이자 원본인 이 **아들**의 이름을 항상 지닌다.

이 **아들**들은, **창조주 아들**이 인간거주 세계에 주는 물질적 선물이다. 그들은 **행성 왕자**와 함께, 그런 구체의 진화 과정 내내, 자신이 배치된 행성에 남는다. **행성 왕자**가 주둔하는 세계에서 그런 모험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배반한 행성, 즉 영적 통치자가 없고 행성 간 소통이 두절된 영역에서는 그런 사명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PAPER 51

THE PLANETARY ADAM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2. Transit of the Planetary Adams
3. The Adamic Missions
4. The Six Evolutionary Races
5. Racial Amalgamation — Bestowal of the Adamic Blood
6. The Edenic Regime
7. United Administration

INTRODUCTION

51:0.1 (580.1) DURING the dispensation of a Planetary Prince, primitive man reaches the limit of natural evolutionary development, and this biologic attainment signals the System Sovereign to dispatch to such a world the second order of sonship, the biologic uplifters. These Sons, for there are two of them —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 are usually known on a planet as Adam and Eve. The original Material Son of Satania is Adam, and those who go to the system worlds as biologic uplifters always carry the name of this first and original Son of their unique order.

51:0.2 (580.2) These Sons are the material gift of the Creator Son to the inhabited worlds. Together with the Planetary Prince, they remain on their planet of assignment throughout the evolutionary course of such a sphere. Such an adventure on a world having a Planetary Prince is not much of a hazard, but on an apostate planet, a realm without a spiritual ruler and deprived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such a mission is fraught with grave danger.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 그리고 다른 체계들에서 이 **아들**들이 하는 업무에 관해 너희가 전부 알 수는 없을지라도, 흥미로운 한 쌍, 즉 **아담**과 **이브**의 삶과 체험에 대해서 다른 문서들이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인데, 이들은 **유란시아** 인종들을 증진시키려고, **예루셈**의 생물학적 개량자 단체로부터 왔다. 너희 원주민 인종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담**의 사명이 무익하지는 않았으며, **유란시아**는 **아담**과 **이브**라는 선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익을 얻었고,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서, 그리고 높은 곳의 협의회에서는, 그들의 업적이 전부 헛일이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1.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기원과 본성

물질적인, 즉 남녀인 **아들**과 **딸**들은, **창조주 아들**의 후손이며; **우주 어머니 영**은 이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육신의 개량자 역할을 하도록 예정돼 있다.

물질적인 아들신분 계층은 지방우주 전역에서 균일하지 않다. **창조주 아들**은 각 지역 체계마다 오직 한 쌍의 이 존재를 산출하며; 원래의 이 쌍은 본성에서 다양한데, 그들 각자 체계의 생명 원형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필연적 규정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체계든지 거기에 속한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 존재의 번식 잠재력과 **아담**들의 번식 잠재력이 함께 작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왔던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들 중에서 원본 **사타니아** 쌍의 자손이다.

물질 아들은 키가 8피트에서 1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들의 몸은 반짝이는 보라색 빛을 발한다. 그들은 물질적 피가 몸 전체를 흐르는 동시에, 신성한 에너지로도 충전돼 있고, 천상의 빛으로 가득하다. 이 **물질 아들**(곧 **아담**)과 **물질 딸**(곧 **이브**)는 서로 대등한데, 번식 본성에서만, 그리고 특정한 화학적 재능에서만 다를 뿐이다. 그들은 대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르고--따라서 상호보완적이며-- 거의 모든 임무에서 쌍으로 근무하도록 예정된다.

물질 아들은 이중으로 영양을 섭취하며; 본질과 체질에서 정말로 이중적인데, 그 영역의 육신적 존재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물질화된 에너지를 섭취하는 한편, 그들의 불멸하는 실존은, 지속시키는 특정한 시공우주 에너지를 직접 자동 흡수함으로써 충분히 유지된다. 부여받은 어떤 사명에서 실패하거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이 계층의 **아들**들은 격리되는데, 빛과 생명의 우주 근원과 연결된 것이 끊어진다. 그들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물질 존재가

51:0.3 (580.3) Although you cannot hope to know all about the work of these Sons on all the worlds of Satania and other systems, other papers depict more fully the life and experiences of the interesting pair, Adam and Eve, who came from the corps of the biologic uplifters of Jerusem to upstep the Urantia races. While there was a miscarriage of the ideal plans for improving your native races, still, Adam's mission was not in vain; Urantia has profited immeasurably from the gift of Adam and Eve, and among their fellows and in the councils on high their work is not reckoned as a total loss.

1. ORIGIN AND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51:1.1 (580.4) The material or sex Sons and Daughters are the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does not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these beings who are destined to function as physical uplifte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51:1.2 (580.5)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not uniform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produces only one pair of these beings in each local system; these original pairs are diverse in nature, being attuned to the life pattern of their respective systems. This is a necessary provision since otherwise the reproductive potential of the Adams would be nonfunctional with that of the evolving mortal beings of the worlds of any one particular system. The Adam and Eve who came to Urantia were descended from the original Satania pair of Material Sons.

51:1.3 (580.6) Material Sons vary in height from eight to ten feet, and their bodies glow with the brilliance of radiant light of a violet hue. While material blood circulates through their material bodies, they are also surcharged with divine energy and saturated with celestial light. These Material Sons (the Adams) and Material Daughters (the Eves) are equal to each other, differing only in reproductive nature and in certain chemical endowments. They are equal but differential, male and female — hence complementary — and are designed to serve on almost all assignments in pairs.

51:1.4 (581.1) The Material Sons enjoy a dual nutrition; they are really dual in nature and constitution, partaking of materialized energy much as do the physical beings of the realm, while their immortal existence is fully maintained by the direct and automatic intake of certain sustaining cosmic energies. Should they fail on some mission of assignment or even consciously and deliberately rebel, this order of Sons becomes isolated, cut off from connection with the universe

되며, 자신이 배정된 세계에서 물질 생애 과정을 겪어가도록, 그리고 판결받기 위해 우주 재판관들에게 출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불행하고 어리석은 **물질 아들**이나 **딸**의 행성 생애는, 결국 물질적 죽음으로 종료될 것이다.

원래의, 즉 직접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지방 우주 아들신분을 갖는 다른 모든 계층과 똑같이, 선천적 재능으로 인해 불멸성을 갖지만,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불멸성 잠재력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의 이 부부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무조건 불멸하는 성질을 전달할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영**의 정신_인력 회로와 끊임없이 지적으로 동시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타니아** 체계가 시작된 후로, 열세 명의 **행성 아담**이 반역과 태만으로 손실됐고, 681,204명이 하위의 위탁 직책에서 손실됐다. 이런 변절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역 때 발생했다.

체계 수도에서는, 영구 시민으로서 사는 동안, 심지어 진화 행성으로 내려가는 사명에서 활약할 때에도, **물질 아들**은 **사고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지만, **조율사**가 내주하고 **낙원**으로 상승하는 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획득한다.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정도로 유익한 이 존재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 영역의 물질 시민으로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가며, 거기로부터 진화 세계로 파송된다.

행성 봉사에 참여하는 다른 피조 **아들**들과는 달리, 아들신분의 물질 계층은 본질적으로 **유란시아** 거주자 같은 물질 피조물의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시간세계의 피조물과 실제로 섞일 수 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향상시키는 이 역할은 대개 **행성 아담**의 자손들에게 맡겨진다.

예루셈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충성스런 자녀마다 불멸성을 갖지만, **물질 아들**과 **딸**이 진화 행성에 도착한 후에 출산한 후손은, 자연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생식(生殖) 활동을 위해 이 **아들**이 진화 세계에서 다시 물질화 될 때, 생명_전달 장치에 변화가 발생한다. 죽지 않는 아들과 딸들을 낳는 능력을,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서 **생명 운반자**들이 고의로 빼앗는다. 태만하지 않는다면, 행성 사명을 띤 **아담**과 **이브**는 무기한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떤 한도 내에서 그들의 자녀는 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한다.

source of light and life. Thereupon they become practically material beings, destined to take the course of material life on the world of their assignment and compelled to look to the universe magistrates for adjudication. Material death will eventually terminate the planetary career of such an unfortunate and unwise Material Son or Daughter.

51:1.5 (581.2) An original or directly created Adam and Eve are immortal by inherent endowment just as are all other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but a diminution of immortality potential characterizes their sons and daughters. This original couple cannot transmit unconditioned immortality to their procreated sons and daughters. Their progeny are dependent for continuing life on unbroken intellectual synchrony with the mind-gravity circuit of the Spirit. Since the inception of the system of Satania, thirteen Planetary Adams have been lost in rebellion and default and 681,204 in the subordinate positions of trust. Most of these defections occurr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51:1.6 (581.3) While living as permanent citizens on the system capitals, even when functioning on descending missions to the evolutionary planets, the Material Sons do not possess Thought Adjusters, but it is through these very services that they acquire experiential capacity for Adjuster indwelling and the Paradise ascension career. These unique and wonderfully useful beings are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They are concentrat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ere they reproduce and carry on as material citizens of the realm, and whence they are dispatched to the evolutionary worlds.

51:1.7 (581.4) Unlike the other created Sons of planetary service,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not, by nature, invisible to material creatures like the inhabitants of Urantia. These Sons of God can be seen, understood, and can, in turn, actually mingle with the creatures of time, could even procreate with them, though this role of biologic upliftment usually falls to the progeny of the Planetary Adams.

51:1.8 (581.5) On Jerusem the loyal children of any Adam and Eve are immortal, but the offspring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procreated subsequent to their arrival on an evolutionary planet are not thus immune to natural death. There occurs a change in the life-transmitting mechanism when these Sons are rematerialized for reproductive function on an evolutionary world. The Life Carriers designedly deprive the Planetary Adams and Eves of the power of begetting undying sons and daughters. If they do not default, an Adam and Eve on a planetary mission can live on indefinitely, but within certain limits their children

experience decreasing longevity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2. 행성 아담의 운반

또 하나의 인간거주 세계가 물리적 진화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체계 주권자**는 체계 수도의 **물질 아들**과 **딸** 단체를 소집하며; 그런 진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한 후에, 자원하는 집단 가운데 두 명이--곧 **물질 아들**들 중에서 선임 단체에 속한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이브**가-- 모험을 이행하도록 선택되는데, 연합하여 봉사하던 자기 고향으로부터,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험이 있는 새 영역으로 운송되도록 준비하면서, 스라빔에 둘러싸이고 깊은 수면{睡眠} 속으로 들어간다.

아담과 **이브**들은 약간물질 피조물이며, 그런 상태로는 스라빔이 운반할 수 없다. 그들은 배정된 세계로 운반되도록 스라빔에 둘러싸일 수 있기 전에, 체계 수도에서 비물질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운송 스라빔은, **물질 아들**들에게 그리고 다른 약간물질 존재들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들이 스라빔에 둘러싸이게 하고, 그리하여 한 세계 또는 체계에서 다른 곳으로, 공간을 통해서 운송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운송 준비에 표준 시간으로 3일이 소요되며, 비물질화 된 그런 피조물이 스랍 운송 여행을 끝내고 도착해서 정상 실존으로 재생되는 일에는, **생명 운반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예루셈에서 진화 세계로 운반되도록 **아담**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비물질화 기법이 있지만, 그런 세계로부터 그들을 데려가는 대등한 다른 방법은 없으며, 그 행성 전체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구제 가능한 전체 인구를 위해서 비물질화 기법의 응급 설비가 만들어진다. 진화하는 인종의 행성 거주지에 어떤 물리적 대 참사가 일어난다면, **멜기세덱**들과 **생명 운반자**들은 모든 생존자를 위해서 비물질화 기법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 존재들은 자신의 계속적인 실존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세계로 스랍 운송을 통해서 옮겨질 것이다. 인간 종족의 진화는, 공간에 있는 한 세계에서 일단 시작되고 나면, 그 행성이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과는 아주 별개로 진행돼야 하지만, 진화하는 시절에는 **행성 아담**이나 **이브**가 자신이 선택한 세계를 떠나도록 달리 예정돼 있지 않다.

목적지인 행성에 도착하게 되면, **물질 아들**과 **딸**은 **생명 운반자**들의 지시 하에 다시 물질화 된다. 이 전체 과정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일내지 28일이 소요된다. 스랍 속에 잠들어있는 동안의 무의식 상태는, 재구성되는 이 전체 기간에 지속

2. TRANSIT OF THE PLANETARY ADAMS

51:2.1 (582.1) Upon receipt of the news that another inhabited world has attained the height of physical evolution, the System Sovereign convenes the corp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n the system capital; and following the discussion of the needs of such an evolutionary world, two of the volunteering group — an Adam and an Eve of th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 are selected to undertake the adventure, to submit to the deep sleep preparatory to being enseraphimed and transported from their home of associated service to the new realm of new opportunities and new dangers.

51:2.2 (582.2) Adams and Eves are semimaterial creatures and, as such, are not transportable by seraphim. They must undergo dematerialization on the system capital before they can be enseraphimed for transport to the world of assignment. The transport seraphim are able to effect such changes in the Material Sons and in other semimaterial beings as enable them to be enseraphimed and thus to be transported through space from one world or system to another. About three days of standard time are consumed in this transport preparation, and it requires the co-operation of a Life Carrier to restore such a dematerialized creature to normal existence upon arrival at the end of the seraphic-transport journey.

51:2.3 (582.3) While there is this dematerializing technique for preparing the Adams for transit from Jerusem to the evolutionary worlds, there is no equivalent method for taking them away from such worlds unless the entire planet is to be emptied, in which event emergency installation of the dematerialization technique is made for the entire salvable population. If some physical catastrophe should doom the planetary residence of an evolving race, the Melchizedeks and the Life Carriers would install the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for all survivors, and by seraphic transport these beings would be carried away to the new world prepared for their continuing existence. The evolution of a human race, once initiated on a world of space, must proceed quite independently of the physical survival of that planet, but during the evolutionary ages it is not otherwise intended that a Planetary Adam or Eve shall leave their chosen world.

51:2.4 (582.4) Upon arrival at their planetary destination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rematerializ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ife Carriers. This entire process takes ten to twenty-eight days of Urantia time. The unconsciousness of the seraphic slumber continues throughout this

된다. 물리적 유기체의 재구성이 완성되면,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물질 아들**과 **딸**은 그들이 **예루셈**에서 비물질화 과정을 따르기 전의 상태 그대로, 그들의 새로운 집에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세상에 임하게 된다.

3. 아담의 사명

물질 아들과 **딸**은, 인간거주 세계에 자신의 동산 주택을 세우는데, 곧 자기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대개 **행성 왕자**가 동산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원주민 인종들 중에서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대부분의 사전{事前} 예비 작업에 참여한다.

이 **에덴 동산**은 성좌의 수도 **에덴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고자 아버지**들의 본부 세계의 장엄한 식물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된다. 그런 동산 주택은 대개 화귀선 근처 지대의 한적한 지방에 위치한다. 그 주택은 평범한 세계에서 볼 때 경이로운 창작품이다.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진행되던 그런 이행업무의 중단에 관한 단편적 설명을 듣고서는 이 아름다운 문화 중심지에 대해 전혀 판단할 수 없다.

잠재력으로 볼 때, **행성 아담**과 **이브**는 필사 인종들에게 온전히 베푼 육체적 은혜의 선물이다. 외계에서 들어온 그런 한 쌍의 주요 업무는, 번식하는 것과, 시간세계의 자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민족과 세상의 민족이 즉시 피를 섞지는 않으며;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계층에 속하는 강력한 인종을 이룩할 때까지 여러 세대 동안, 진화 필사자로부터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인간거주 세계에서 보라색 인종의 기원이다.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진이 인종 증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아담**과 **이브**가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너희의 **물질 아들**과 그의 반려자가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크게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캘리개스타**는 **아담**의 사명에 교활하고 효과적인 저항을 시도했으며; 반역하는 **행성 왕자**의 출현에 내재된, 행성의 위험상태에 관해서, **유란시아**의 **멜키세덱** 관계인들이 **아담**과 **이브** 두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이 반역의 원흉은 교활한 계략으로 **에덴** 부부의 허를 찔렀고, 그들을 뒷에 걸리게 해서, 너희 세계의 가시적 통치자들로서의 위탁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반역한 **행성 왕자**는 너희의 **아담**과 **이브**와 타협하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들을 **루시퍼** 반역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는 실패했다.

entire period of reconstruction. When the reassembly of the physical organism is completed, thes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stand in their new homes and on their new world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just as they were before submitting to the dematerializing process on Jerusem.

3. THE ADAMIC MISSIONS

51:3.1 (582.5) On the inhabited world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construct their own garden homes, soon being assisted by their own children. Usually the site of the garden has been selected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corporeal staff do much of the preliminary work of preparation with the help of many of the higher types of native races.

51:3.2 (583.1) These Gardens of Eden are so named in honor of Edentia, the constellation capital, and because they are patterned after the botanic grandeur of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Most High Fathers. Such garden homes are usually located in a secluded section and in a near-tropic zone. They are wonderful creations on an average world. You can judge nothing of these beautiful centers of culture by the fragmentary account of the aborted development of such an undertaking on Urantia.

51:3.3 (583.2) A Planetary Adam and Eve are, in potential, the full gift of physical grace to the mortal races. The chief business of such an imported pair is to multiply and to uplift the children of time. But there is no immediate interbree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garden and those of the world; for many generations Adam and Eve remain biologically segregated from the evolutionary mortals while they build up a strong race of their order. This is the origin of the violet race on the inhabited worlds.

51:3.4 (583.3) The plans for race upstepping are prepared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and are executed by Adam and Eve. And this was where your Material Son and his companion were placed at great disadvantage when they arrived on Urantia. Caligastia offered crafty and effective opposition to the Adamic mission; and notwithstanding that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had duly warned both Adam and Eve concerning the planetary dangers inherent in the presence of the rebellious Planetary Prince, this archrebel, by a wily stratagem, outmaneuvered the Edenic pair and entrapped them into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f their trusteeship as the visible rulers of your world. The traitorous Planetary Prince did succeed in compromising your Adam and Eve, but he failed in his effort to involve them in the Lucifer rebellion.

행성 도우미인 다섯째 계층의 천사들이 **아담**의 사명에 배속되는데, **행성 아담**들이 세계 모험에 임할 때 반드시 동행한다. 처음에 배정된 단체는 대개 약 10만 명이다.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업무가 조금하게 시작했을 때, 즉 그들이 규정된 계획에서 이탈했을 때, 비난받을만한 그들의 품행에 관해서 그들을 꾸짖은 자는, **동산의 소리**스랍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너희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주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너희 행성의 전승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란시아인**은 이것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에 관하여 자주 혼동해 왔는데, 그분의 모든 동역자와 하급자의 말과 행위가 너무나 전반적으로 그분 탓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동산**의 천사는 행성 도우미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때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스라빔 **솔로니아**가 신성한 계획의 실패를 선언했으며, **멜기세덱** 관계인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2차 중도 피조물은 **아담**의 사명에서 생겨나는 존재다.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과 함께 함으로써,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은:그들의 육신적 자손과 2차 계층의 중도 피조물, 이 두 계층으로 이뤄진다. 물질적이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 사역자들은, 문명의 진보에,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발전과 영적 진보를 파괴하려고 애쓸 수 있는 반항하는 소수 무리들을 굴복시키는 데에도, 많이 기여한다.

2차 중도자들은 1차 계층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후자는 **행성 왕자**가 도착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이 초기 중도 피조물 가운데 대다수가 **캘리개스차**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으며, **오순절** 이래 억류돼 있다. 행성 경영에 충성하기를 거부했던, **아담**의 집단 가운데 다수 역시 비슷하게 억류돼 있다.

오순절 날에, 충성스런 1차 및 2차 중도자들은 자발적으로 합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계속, 세계 직무에서 한 단체로 활동해 왔다. 그들은 두 집단에서 교대로 선택되는 충성스런 중도자의 통솔 하에 근무한다.

너희 세계에는:**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하남의 물질 아들인 아담과 이브;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의 현자{賢者}**”인 **마키벤타 멜기세덱**;그리고 **낙원** 증여 **아들**로서 왔던 **그리스도 미가엘**, 이렇게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네 계층이 방문했다. **네바돈** 우주의 최상급 통치자인 **미가엘**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행성 왕자**와, 헌신되고 성공적인 **물질 아들**, 즉 증여된 **아들**의 필생의 사업과 사명을 매우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두 존재의 환영을 받

51:3.5 (583.4) The fifth order of angels, the planetary helpers, are attached to the Adamic mission, always accompanying the Planetary Adams on their world adventures. The corps of initial assignment is usually about one hundred thousand. When the work of the Urantia Adam and Eve was prematurely launched, when they departed from the ordained plan, it was one of the seraphic Voices of the Garden who remonstrated with them concerning their reprehensible conduct. And your narrative of this occurrence well illustrates the manner in which your planetary traditions have tended to ascribe everything supernatural to the Lord God. Because of this, Urantians have often become confused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since the words and acts of all his associates and subordinates have been so generally attributed to him. In the case of Adam and Eve, the angel of the Garden was none other than the chief of the planetary helpers then on duty. This seraphim, Solonia, proclaimed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and requisitioned the retur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o Urantia.

51:3.6 (583.5) The secondary midway creatures are indigenous to the Adamic missions. As with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the descendant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of two orders: their physical children and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 creatures. These material but ordinarily invisible planetary ministers contribute much to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even to the subjection of insubordinate minorities who may seek to subvert social development and spiritual progress.

51:3.7 (583.6) The secondary midway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primary order, who date from the near times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On Urantia a majority of these earlier midway creatures went into rebellion with Caligastia and have, since Pentecost, been interned. Many of the Adamic group who did not remain loyal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are likewise interned.

51:3.8 (584.1) On the day of Pentecost the loyal primary and the secondary midways effected a voluntary union and have functioned as one unit in world affairs ever since. They serve under the leadership of loyal midways alternately chosen from the two groups.

51:3.9 (584.2) Your world has been visited by four orders of sonship: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Adam and Ev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Machiventa Melchizedek, the “sage of Salem” in the days of Abraham; and Christ Michael, who came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How much more effective and beautiful it would have been had Michael, the supreme ruler of the universe of Nebadon, been welcomed to

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아름다웠을까! 그러나 모든 세계가 **유란시아**처럼 불행했던 것은 아니며, 또한 **행성 아담**들의 사명이 항상 그토록 어렵고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발달되도록 기여하는데, 눈에 보이는 행성 직무 우두머리로서, 한 세계가 빛과 생명에 안주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존재한다.

4. 진화하는 여섯 인종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시절에 우세한 인종은 홍색인인데, 그들은 대개 인간 발달 수준을 제일 먼저 달성한다. 그러나 홍색인이 행성의 선임 인종이지만, 그 뒤를 잇는 유색 민족들은 필사자가 출현하는 시대에 아주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 인종들이 후기 인종들보다 어느 정도 뛰어나며; 홍색인은 남색--곧 흑색--인종보다 훨씬 앞에 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에너지를, 첫 인종, 즉 홍인종에게 충분히 나눠주며, 이어지는 별개의 필사자 집단들이 각각 진화해서 출현하는 것은, 원래의 자질을 희생시킴으로 얻는 변화를 의미한다. 필사자의 키조차 홍색인에서 남색 종족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거인{巨人} 혈통들이 녹색 민족과 주황색 민족 가운데서 나타났었다.

여섯 진화 인종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에서, 첫째, 셋째, 및 다섯째 인종이--곧 홍색, 황색, 및 청색 인종이--우세하다. 진화 인종들은, 지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교차하는데, 둘째, 넷째, 및 여섯째는 어느 정도 덜 부여받았다. 이 2차 인종들은 어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며; 많은 다른 세계에서 이미 멸종했다. **유란시아**에서 우세한 청색인이 너무 많이 손실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 혼혈된 "백인종" 속에 남아있다. 주황색과 녹색 혈통의 손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바 못 된다.

여섯--또는 세--유색 인종의 진화는, 홍색인의 원래 자질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사자 유형에 매우 바람직한 어떤 변이를 제공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다양한 인간 잠재성이 표현되도록 마련한다. 이런 여러 변형은, 외계에서 들어온 **아담** 인종, 즉 보라색 인종이 나중에 이를 증진시킨다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유익하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이 평범한 혼합 계획이 광범하게 수행되지 못했으며, 인종 진화 계획을 수행하기에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 세계에서 이 초기 인종들의 후손을 관찰한다

your world by a loyal and efficient Planetary Prince and a devoted and successful Material Son, both of whom could have done so much to enhance the lifework and mission of the bestowal Son! But not all worlds have been so unfortunate as Urantia, neither has the mission of the Planetary Adams always been so difficult or so hazardous. When they are successful,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great people, continuing as the visible heads of planetary affairs even far into the age when such a world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4. THE SIX EVOLUTIONARY RACES

51:4.1 (584.3) The race of dominance during the early ages of the inhabited worlds is the red man, who ordinarily is the first to attain human levels of development. But while the red man is the senior race of the planets, the succeeding colored peoples begin to make their appearances very early in the age of mortal emergence.

51:4.2 (584.4) The earlier races are somewhat superior to the later; the red man stands far above the indigo — black — race. The Life Carriers impart the full bestowal of the living energies to the initial or red race, and each succeeding evolutionary manifestation of a distinct group of mortals represents variation at the expense of the original endowment. Even mortal stature tends to decrease from the red man down to the indigo race, although on Urantia unexpected strains of giantism appeared among the green and orange peoples.

51:4.3 (584.5) On those worlds having all six evolutionary races the superior peoples are the first, third, and fifth races — the red, the yellow, and the blue. The evolutionary races thus alternate in capacity for intellectual growth and spiritual development, the second, fourth, and sixth being somewhat less endowed. These secondary races are the peoples that are missing on certain worlds; they are the ones that have been exterminated on many others. It is a misfortune on Urantia that you so largely lost your superior blue men, except as they persist in your amalgamated "white race." The loss of your orange and green stocks is not of such serious concern.

51:4.4 (584.6) The evolution of six — or of three — colored races, while seeming to deteriorate the original endowment of the red man, provides certain very desirable variations in mortal types and affords an otherwise unattainable expression of diverse human potentials. These modifications are beneficial to the progress of mankind as a whole provided they are subsequently upstepped by the imported Adamic or violet race. On Urantia this usual plan of amalgamation was not extensively carried out, and this failure to execute the plan of race evolution makes it impossible for

해도, 인간이 거주하는 보통 행성에서 이 민족들의 상태가 어찌지를 너희가 도무지 많이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인종이 발달하는 초기 시절에, 홍색, 황색, 및 청색 사람의 피가 섞이는 경향이 약간 있으며; 주황색, 녹색, 및 남색인종이 서로 섞이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

뒤떨어진 인간들은 대개 더 진취적인 인종들에게 노동자로서 채용된다. 이것이 초기 시대에 여러 행성에서 노예제도의 기원을 설명한다. 주황색 사람들은 대개 홍인종에게 정복됐고 하인 신분으로 격하된다--때로는 멸절된다. 황색인과 홍색인은 종종 화목을 이루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황인종은 대개 녹색인종을 노예로 삼는 반면, 청색인은 남색인을 정복한다. 이 원시 인종들은, 자신보다 뒤떨어진 동료들의 힘을 강제노동에 사용하는 것을, **유란시아인**이 말이나 가축을 거래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상 세계에서, 본의 아닌 강제노동은 **행성 왕자**의 섭리시대에 살아남지 못하지만, 정신 장애자와 사회적 비행(非行)을 저지른 자들은 강제 노동을 하도록 여전히 종종 강요된다. 그러나 모든 정상 구체에서 이런 종류의 원시 노예제도는, 외계에서 들어온 보라색 인종, 즉 **아담** 인종이 도래한 후에 곧 폐지된다.

진화하는 이 여섯 인종은, **아담**의 개량자 자손들과 융합함으로써 섞이고 고양되게 돼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섞이기 전에, 열등하고 부적합한 자들은 대부분 제거된다.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이**, 다른 적절한 행성 당국과 함께, 번식하는 혈통들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그런 급진적 계획표가 **유란시아**에서 수행되기 어려운 것은, 각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능한 심판관들이 너희 세계 인종 가운데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침돌이 있음에도, 아주 두드러지게 부적합하고, 결함이 있고, 퇴화되고, 반사회적인 혈통들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데 너희가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5. 인종 혼합--아담의 피 증여

행성 아담과 **이브**가 인간거주 세계에 도착할 때, 그들은 현존하는 인종들의 지적 존재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상관들로부터 충분히 교육 받았다. 진행 계획은 확실히 아니었으며; 대부분은 사역하는 쌍의 판단에 맡겨지는데, 특히 **유란시아** 같은 무질서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계의 경우에는, 실수가 종종 발생된다.

you to understand very much about the status of these peoples on an average inhabited planet by observing the remnants of these early races on your world.

51:4.5 (585.1) In the early days of racial development there is a slight tendency for the red, the yellow, and the blue men to interbreed; there is a similar tendency for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to intermingle.

51:4.6 (585.2) The more backward humans are usually employed as laborers by the more progressive races. This accounts for the origin of slavery on the planets during the early ages. The orange men are usually subdued by the red and reduced to the status of servants — sometimes exterminated. The yellow and red men often fraternize, but not always. The yellow race usually enslaves the green, while the blue man subdues the indigo. These races of primitive men think no more of utilizing the services of their backward fellows in compulsory labor than Urantians would of buying and selling horses and cattle.

51:4.7 (585.3) On most normal worlds involuntary servitude does not survive the dispensation of the Planetary Prince, although mental defectives and social delinquents are often still compelled to perform involuntary labor. But on all normal spheres this sort of primitive slavery is abolished soon after the arrival of the imported violet or Adamic race.

51:4.8 (585.4) These six evolutionary races are destined to be blended and exalted by amalgamation with the progeny of the Adamic uplifters. But before these peoples are blended, the inferior and unfit are largely eliminated.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 with other suitable planetary authorities, pass upon the fitness of the reproducing strains. The difficulty of executing such a radical program on Urantia consists in the absence of competent judges to pass upon the biologic fitness or unfitness of the individuals of your world races. Notwithstanding this obstacle, it seems that you ought to be able to agree upon the biologic disfellowshipping of your more markedly unfit, defective, degenerate, and antisocial stocks.

5. RACIAL AMALGAMATION —

BESTOWAL OF THE ADAMIC BLOOD

51:5.1 (585.5) When a Planetary Adam and Eve arrive on an inhabited world, they have been fully instructed by their superiors as to the best way to effect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races of intelligent beings. The plan of procedure is not uniform; much is left to the judgment of the ministering pair, and mistakes are not infrequent,

보라색 인종은 대개, 자체 집단이 100만 명을 넘기 전에는 행성 원주민과의 혼혈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성 왕자**의 참모진은, 이를테면, **하나님**들의 자녀들이 사람의 인종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선언하며; 우수한 인종적 혈통에 속함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새롭고 혼합된 인류 계층의 진화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들로서,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포될 그날을 애대게 기다린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진화 인종과 결코 짝짓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개선시키는 이 업무는 **아담**의 후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아담족속**이 그 인종들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않으며; **아담**의 후손과 자발적으로 짝질 수 있도록, 우세한 남녀들을 왕자의 참모진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동산의 아들 및 딸과 결혼할 수 있는 후보자로 뽑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종족 간 전쟁 및 기타 부족 간 투쟁이 처음으로 줄어들며, 한편 세계 인종들은 동산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고 더욱 애쓴다. 정상적인 행성에서 이런 경쟁적인 노력이 어떻게 모든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는지, 너희는 기껏해야 아주 미약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인종을 개량하는 이 전체 짜임새가 **유란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망가졌다.

보라색 인종은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민족이며, **아담**의 아들 및 딸과 결합한, 진화하는 각 남자 또는 여자는, 다른 배우자를 취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의 또는 그녀의 자녀에게 한 번만 결혼하도록 가르치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결합한 각 자녀는, **행성 왕자**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진화하는 자신의 부모 인종에게로 가서, 거기서 선택된 집단의 우세한 필사자 가운데서 결혼하도록 허용된다.

물질 아들들의 이 혈통이, 세상의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덧붙여졌을 때, 진화로 진보하는 더 위대한 새 시대가 시작된다. 외계에서 들어온 능력, 그리고 진화를 초월하는 특징이 이런 번식 방법으로 부여된 후에, 문명과 인종 발달에서 일련의 급속한 진전이 계속 일어나며; 이전에 100만 년 동안의 투쟁보다 더 큰 진보가 10만 년 내에 이뤄진다. 너희 세계의 경우에, 심지어 예정된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너희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후에, 위대한 진보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행성의 **에덴 동산**에서 순수 혈통 자손이, 여러 진화 인종 중에서 우수한 구성원들에게

especially on disordered, insurrectionary worlds, such as Urantia.

51:5.2 (585.6) Usually the violet peoples do not begin to amalgamate with the planetary natives until their own group numbers over one million. But in the meantime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proclaims that the children of the Gods have come down, as it were, to be one with the races of men; and the people eagerly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nouncement will be made that those who have qualified as belonging to the superior racial strains may proceed to the Garden of Eden and be there chosen by the sons and daughters of Adam as the evolutionary fathers and mothers of the new and blended order of mankind.

51:5.3 (585.7) On normal worlds the Planetary Adam and Eve never mate with the evolutionary races. This work of biologic betterment is a function of the Adamic progeny. But these Adamites do not go out among the races; the prince's staff bring to the Garden of Eden the superior men and women for voluntary mating with the Adamic offspring. And on most worlds it is considered the highest honor to be selected as a candidate for mating with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garden.

51:5.4 (586.1) For the first time the racial wars and other tribal struggles are diminished, while the world races increasingly strive to qualify for recognition and admission to the garden. You can at best have but a very meager idea of how this competitive struggle comes to occupy the center of all activities on a normal planet. This whole scheme of race improvement was early wrecked on Urantia.

51:5.5 (586.2) The violet race is a monogamous people, and every evolutionary man or woman uniting with the Adamic sons and daughters pledges not to take other mates and to instruct his or her children in single-matedness. The children of each of these unions are educated and trained in the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n are permitted to go forth to the race of their evolutionary parent, there to marry among the selected groups of superior mortals.

51:5.6 (586.3) When this strain of the Material Sons is added to the evolving races of the worlds, a new and greater era of evolutionary progress is initiated. Following this procreative outpouring of imported ability and superevolutionary traits there ensues a succession of rapid strides in civilization and racial development; in one hundred thousand years more progress is made than in a million years of former struggle. In your world, even in the face of the miscarriage of the ordained plans,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since the gift to your peoples of Adam's life plasm.

51:5.7 (586.4) But while the pure-line children of a planetary Garden of Eden can bestow themselves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유란시아** 필사자들 중에서 높은 혈통이 저급한 인종과 짝짓는 것은 유익하다고 판명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현명치 못한 과정은 너희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아담**의 기법으로 인종의 조화를 성취하기에 실패했으므로, 너희는 이제 인종 개선에 대한 너희 행성의 문제에서, 적응과 통제라는 다른 방법, 그리고 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upon the superior members of the evolutionary races and thereby upstep the biologic level of mankind, it would not prove beneficial for the higher strains of Urantia mortals to mate with the lower races; such an unwise procedure would jeopardize all civilization on your world. Having failed to achieve race harmonization by the Adamic technique, you must now work out your planetary problem of race improvement by other and largely human methods of adaptation and control.

6. 에덴의 체제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에덴 동산**은 우수한 문화 중심지로서 남아있으며, 행성의 운영 및 관례의 사회적 원형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작용한다. 심지어 보라색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격리된 초기 시대에도, 그들의 학교는 세계 인종들로부터 합당한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동산의 산업 발달은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설한다.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 및 그 후손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진화 인종들의 갑작스런 문화적 팽창과 급속한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진화 인종들과 **아담**의 아들들이 혼합됨으로써 증대되고 안정되는데, 그 결과로 생물학적 상태가 즉시 개선되고, 지성 잠재력이 갱생(更生)되며, 영적 감수성이 증진된다.

정상적인 세계의 경우에, 보라색 인종의 동산 본부는 세계 문화의 2차 중심지가 되며, **행성 왕자**의 본부 도시와 공동으로,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를 정한다. **행성 왕자**의 도시 본부에 있는 학교,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가, 여러 세기 동안 함께 존재한다. 그 학교들은 대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조화롭게 협동하면서 함께 일한다.

3만7천 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작동해 온, 문명의 세계적 중심지, 즉 어떤 위대한 행성 문화 대학이 **레반트**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것이 너희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또한, 통합된 진화 영향력이 50만 년 동안 누적된 힘을 발휘했는지 모를 그런 전통을 가진 본부, 천상의 사역을 베푸는 또 하나의 더 오래된 본부가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있었다면, 그런 고대의 중심지라도 그 도덕적 권위가 얼마나 힘을 받게 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결국 **에덴**의 이상(理想)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것은 바로 관습이다.

행성 왕자의 학교는, 철학, 종교, 도덕, 그리고 고귀한 지적 및 예술적 성취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는 대개, 실용 예술,

6. THE EDENIC REGIME

51:6.1 (586.5) 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the Gardens of Eden remain as superb cultural centers and continue to function as the social patterns of planetary conduct and usage age after age. Even in early times when the violet peoples are relatively segregated, their schools receive suitable candidates from among the world races, while the industrial developments of the garden open up new channels of commercial intercourse. Thus do the Adams and Eves and their progeny contribute to the sudden expansion of culture and to the rapid improvement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their worlds. And all of these relationships are augmented and sealed by the amalgam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and the sons of Adam, resulting in the immediate upstepping of biologic status, the quickening of intellectual potential, and the enhancement of spiritual receptivity.

51:6.2 (586.6) On normal worlds the garden headquarters of the violet race becomes the second center of world culture and, jointly with the headquarters city of the Planetary Prince, sets the pace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For centuries the city headquarters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garden schools of Adam and Eve are contemporary. They are usually not very far apart, and they work together in harmonious co-operation.

51:6.3 (587.1) Think what it would mean on your world if somewhere in the Levant there were a world center of civilization, a great planetary university of culture, which had functioned uninterruptedly for 37,000 years. And again, pause to consider how the moral authority of even such an ancient center would be reinforced were there situated not far-distant still another and older headquarters of celestial ministry whose traditions would exert a cumulative force of 500,000 years of integrated evolutionary influence. It is custom which eventually spreads the ideals of Eden to a whole world.

51:6.4 (587.2) The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philosophy, religion, morals, and the higher intellectual and artistic achievements. The garden schools of Adam and

기초 지력(知力) 훈련, 사회적 문화, 경제 발전, 무역 관계, 물리적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에 전념한다. 이 세계 중심들이 결국 혼합되지만, 이런 실제 합병은 때때로 첫 **집정관 아들**의 시대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행성 아담과 **이브**가 계속 실존하는 것은, 보라색 인종의 순수_혈통 핵심과 함께, **에덴**의 문화가 안정된 성장을 이루게 하며, 그 덕택으로 그들의 실존은 전통이라는 강제적 힘으로 한 세계의 문명에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불멸하는 이 **물질 아들과 딸들**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필수불가결한 마지막 연결고리와 마주치는데, 영원한 **창조주**와 시간세계의 가장 낮은 유한 인격체들 사이의, 거의 무한한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 높은 곳에서 기원된 존재가 여기 있고, 그는 육체를 가졌고 물질적이며, 심지어 **유란시아** 필사자처럼 남녀 구별이 있는 피조물이며, 그는 눈에 안 보이는 **행성 왕자**를 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 영역의 필사 피조물에게 그의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데, **물질 아들과 딸**은 영 존재 가운데 비교적 낮은 계층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행성 왕자** 및 그의 전체 참모진을 본다.

여러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자손이 사람의 인종들과 혼합됨으로써, 바로 이 **물질 아들과 딸**은, 인류의 공통 조상, 즉 진화 인종들 중에서 이제 피가 섞인 후손의 공통 부모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시작된 필사자들은, 일곱 명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체험을 갖도록 예정돼 있다:

1. 생물학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2. 그 영역의 아버지 --**행성 아담**.
3. 구체들의 아버지 --**체계 주권자**.
4. **지고자 아버지** --**성좌 아버지**.
5. 우주 **아버지** --**창조주 아들** 및 그 지역 창조물의 최상급 통치자.
6. 초월_**아버지들** --연방우주를 통치하는 **태고 항존자들**.
7. 영 **아버지**, 즉 **하보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낙원**에 거하시고, 온갖 우주에 사는 낮은 피조물의 정신 속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자신의 영을 증여하시는 분.

7. 연합된 경영

Eve are usually devoted to practical arts, fundamental intellectual training, social culture,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physical efficiency, and civil government. Eventually these world centers amalgamate, but this actual affiliation sometimes does not occur until the times of the first Magisterial Son.

51:6.5 (587.3)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together with the pure-line nucleus of the violet race, imparts that stability of growth to Edenic culture by virtue of which it comes to act upon the civilization of a world with the compelling force of tradition. In these immortal Material Sons and Daughters we encounter the last and the indispensable link connecting God with man, bridging the almost infinite gulf between the eternal Creator and the lowest finite personalities of time. Here is a being of high origin who is physical, material, even a sex creature like Urantia mortals, one who can see and comprehend the invisible Planetary Prince and interpret him to the mortal creatures of the realm, for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able to see all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 beings; they visualize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entire staff, visible and invisible.

51:6.6 (587.4) With the passing of centuries, through the amalgamation of their progeny with the races of men, this same Material Son and Daughter become accepted as the common ancestors of mankind, the common parents of the now blended descendants of the evolutionary races. It is intended that mortals who start out from an inhabited world have the experience of recognizing seven fathers:

- 51:6.7 (587.5) 1. The biologic father — the father in the flesh.
- 51:6.8 (587.6) 2. The father of the realm — the Planetary Adam.
- 51:6.9 (587.7) 3. The father of the spheres — the System Sovereign.
- 51:6.10 (587.8) 4. The Most High Father — the Constellation Father.
- 51:6.11 (587.9) 5. The universe Father — the Creator Son and supreme ruler of the local creations.
- 51:6.12 (587.10) 6. The super-Fathers — the Ancients of Days who govern the superuniverse.
- 51:6.13 (587.11) 7. The spirit or Havona Father — the Universal Father, who dwells on Paradise and bestows his spirit to live and work in the minds of the lowly creatures who inhabit the universe of universes.

7. UNITED ADMINISTRATION

낙원의 아보날 아들들이 사법적 조치를 위해 때때로 인간거주 세계에 오지만, 집행관 사명을 띤 첫 **아보날**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넷째 섭리시대를 연다. 이 **집행관 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행성에서, 그는 한 시대 동안 남아있으며; 따라서 그 행성은 세 **아들**: 즉 **행성 왕자**, **물질 아들**, 및 **집행관 아들**의 공동 통치 하에 번영하는데, 마지막 두 존재는 그 영역의 모든 거주자의 눈에 보인다.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에서, 첫 **집행관 아들**이 자기 사명을 완료하기 전에,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의 교육 및 경영 업무의 합동이 실행돼 왔다. 행성에서 이중 감독이 이렇게 융합되면, 새롭고 효과적인 체제의 세계 경영이 실존하게 된다. **행성 아담**은, **집행관 아들**이 물러남에 따라서, 그 구체의 외부를 향한 지휘를 맡는다.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세계가 빛과 생명에 안주할 때까지, 행성 경영인으로서 공동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되면, **행성 왕자**는 **행성 주권자** 지위로 승진된다. 이렇게 진화가 진보하는 시대 동안, **아담**과 **이브**는, 영화롭게 된 그 영역의 공동 총리(總理)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된다.

진화하는 세계의 새롭고 통합된 수도가 잘 수립되자마자, 그리고 유능한 하급 경영자들이 적당하게 훈련 받은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멀리 있는 땅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 변방수도들이 건설된다. 또 다른 섭리시대의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이 하위{下位} 중심지가 조직될 것이다.

행성 왕자와 그 참모진은 영적 및 철학적 활동 분야를 여전히 돌본다. **아담**과 **이브**는 그 영역의 물리, 과학, 및 경제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두 집단 모두, 예술, 사회 관계, 및 지적 성취의 증진에 에너지를 똑같이 분배한다.

세계 직무의 다섯째 섭리시대가 시작될 때가 되면, 행성 활동에 대한 장엄한 경영이 성취될 것이다. 잘 관리되는 그런 구체에 있는 필사자 실존은 정말로 활기를 띠고 유익하다. 그리고 **유란시아인**이 그런 행성에서 생애를 관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세계가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었는지,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비단체의 2차 라노난덱 아들이 제시했음]

51:7.1 (587.12) From time to time the Avonal Sons of Paradise come to the inhabited worlds for judicial actions, but the first Avonal to arrive on a magisterial mission inaugurates the fourth dispensation of an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On some planets where this Magisterial Son is universally accepted, he remains for one age; and thus the planet prospers under the joint rulership of three Sons: the Planetary Prince, the Material Son, and the Magisterial Son, the latter two being visible to all the inhabitants of the realm.

51:7.2 (588.1) Before the first Magisterial Son concludes his mission on a normal evolutionary world, there has been effected the union of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 This amalgamation of the dual supervision of a planet brings into existence a new and effective order of world administration. Upon the retirement of the Magisterial Son the Planetary Adam assumes the outward direction of the sphe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us act jointly as planetary administrators until the settling of the world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whereupon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 During this age of advanced evolution, Adam and Eve become what might be called joint prime ministers of the glorified realm.

51:7.3 (588.2) As soon as the new and consolidated capital of the evolving world has become well established, and just as fast as competent subordinate administrators can be properly trained, subcapitals are founded on remote land bodies and among the different peoples. Before the arrival of another dispensational Son, from fifty to one hundred of these subcenters will have been organized.

51:7.4 (588.3)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still foster the spiritual and philosophic domains of activity. Adam and Ev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hysical, scientific, and economic status of the realm. Both groups equally devote their energies to the promotion of the arts, social relation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

51:7.5 (588.4) By the time of the inauguration of the fifth dispensation of world affairs, a magnificent administration of planetary activities has been achieved. Mortal existence on such a well-managed sphere is indeed stimulating and profitable. And if Urantians could only observe life on such a planet, they would immediately appreciate the value of those things which their world has lost through embracing evil and participating in rebellion.

51:7.6 (588.5) [Presented by a Secondary Lanonandek Son of the Reserve Corps.]

제52편. 행성 필사자의 획기적 시대

⇨ 051

유란시아 책

053 ⇨

II 부. 지방우주

제52편

행성 필사자의 획기적 시대

섹션

소개

1. 원시인
2. 행성 왕자_이후의 사람
3. 아담_이후 사람
4. 집정관 아들_이후의 사람
5. 증여 아들_이후의 사람
6. 유란시아의 증여_이후 시대
7. 교사 아들_이후의 사람

PAPER 52

PLANETARY MORTAL EPOCHS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Man
2. Post-Planetary Prince Man
3. Post-Adamic Man
4. Post-Magisterial Son Man
5. Post-Bestowal Son Man
6. Urantia's Post-Bestowal Age
7. Post-Teacher Son Man

소개

진화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된 후부터, 빛과 생명에서 최종적으로 번창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활동 무대에는 인간 생애와 관련하여 최소 일곱 시기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이 시대는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사명에 따라서 결정되며, 보통 인간거주 세계의 경우에 이 획기적 시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행성 왕자_이전{以前}의 사람.**
2. **행성 왕자_이후{以後}의 사람.**
3. **아담_이후의 사람.**
4. **집정관 아들_이후의 사람.**
5. **증여 아들_이후의 사람.**
6. **교사 아들_이후의 사람.**
7. **빛과 생명의 시대.**

공간의 세계들은, 물질적으로 생명체에 적합하게 되자마자, **생명 운반자**들에게 등록되며, 때가 되면 이 **아들**들이 생명체를 창시할 목적으로 그런 행성에 파송된다. 생명체가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전체 기간은 인간 이전 시대

INTRODUCTION

52:0.1 (589.1) FROM the inception of life on an evolutionary planet to the time of its final flowering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re appear upon the stage of world action at least seven epochs of human life. These successive ages are determined by the planetary missions of the divine Sons, and on an average inhabited world these epochs appear in the following order:

52:0.2 (589.2) 1. Pre-Planetary Prince Man.

52:0.3 (589.3) 2. Post-Planetary Prince Man.

52:0.4 (589.4) 3. Post-Adamic Man.

52:0.5 (589.5) 4. Post-Magisterial Son Man.

52:0.6 (589.6) 5. Post-Bestowal Son Man.

52:0.7 (589.7) 6. Post-Teacher Son Man.

52:0.8 (589.8) 7. The Era of Light and Life.

52:0.9 (589.9) The worlds of space, as soon as they are physically suitable for life, are placed on the registry of the Life Carriers, and in due time these Sons are dispatched to such planets for the purpose of initiating life. The entire period from life

로 구분되며, 본 문서에서 고려될 이어지는 여러 필사자 시기보다 앞선다.

1. 원시인

사람이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는 시기부터--곧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의지를 지닌 필사 피조물을 **원시인**(原始人)이라고 부른다. 원시인에는 여섯 가지 기본 유형의 인종들이 있으며, 초기의 이 사람들은 스펙트럼 색조의 순서에 따라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홍색부터 시작한다. 이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 길이는 세계마다 크게 다른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15만년부터 100만 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진화하는 유색{有色} 인종--곧 홍색, 주황색, 황색, 녹색, 청색, 및 남색 인종--은,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발전시키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 때가 되면 사람은 똑바로 서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

원시인은 대단한 사냥꾼이고 사나운 투사(鬪士)다. 이 시대의 법칙은 육체적 적자생존(適者生存)이며; 이 시대의 정치 체제는 전적으로 부족(部族) 중심이다. 많은 세계의 경우에, **유란시아**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초기의 인종적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진화 인종들 가운데 일부가 멸종된다. 살아남은 종족은 대개, 나중에 외계에서 들어오는 보라색 인종, 즉 **아담**의 민족들과 그 후에 섞인다.

차후의 문명에 비춰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두우며 피로 물든 부분이다. 밀림 지대의 윤리와 원시림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 및 높은 영적 발전이 있는 후기 섭리시대의 규범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실험 세계가 아닌 여러 세계에서 이 시기는, **유란시아**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었던, 길고 유별나게 혹독한 투쟁과는 매우 다르다. 너희가 첫 세상 경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이 길고 고통스런 투쟁이 진화 세계에서 왜 일어나는지 비로소 보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낙원**으로 가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동안, 외견상 생소한 이 행위의 지혜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출현한 초기 시대의 모든 홍망성쇠에도, 원시인의 업적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의 연대기{年代記}에서 찬란하고, 심지어 영웅적인 부분을 나타낸다.

초기에 진화하는 사람은 유색 피조물이 아니다. 이 원시 필사자는 대개 동굴에 거주하거나 절벽에서 산다. 그들은 큰 나무에 조잡한 오두막을 짓기도 한다. 그들이 높은 지성 체제를 획득하기 전에는, 큰 유형의 동물이 행성을 지배하는 때

initiation to the appearance of man is designated the prehuman era and precedes the successive mortal epochs considered in this narrative.

1. PRIMITIVE MAN

52:1.1 (589.3) From the time of man's emergence from the animal level — when he can choose to worship the Creator —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mortal will creatures are called *primitive men*. There are six basic types or races of primitive men, and these early peoples successively appear in the order of the spectrum colors, beginning with the red. The length of time consumed in this early life evolution varies greatly on the different worlds, ranging from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to over one million years of Urantia time.

52:1.2 (589.4)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indigo — begin to appear about the time that primitive man is developing a simple language and is beginning to exercise the creative imagination. By this time man is well accustomed to standing erect.

52:1.3 (589.5) Primitive men are mighty hunters and fierce fighters. The law of this age is the physical survival of the fittest; the government of these times is wholly tribal. During the early racial struggles on many worlds some of the evolutionary races are obliterated, as occurred on Urantia. Those who survive are usually subsequently blended with the later imported violet race, the Adamic peoples.

52:1.4 (589.6) In the light of subsequent civilization, this era of primitive man is a long, dark, and bloody chapter. The ethics of the jungle and the morals of the primeval forests are not in keeping with the standards of later dispensations of revealed religion and higher spiritual development. On normal and nonexperimental worlds this epo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olonged and extraordinarily brutal struggles which characterized this age on Urantia. When you have emerged from your first world experience, you will begin to see why this long and painful struggle on the evolutionary worlds occurs, and as you go forward in the Paradise path, you will increasingly understand the wisdom of these apparently strange doings. But notwithstanding all the vicissitudes of the early ages of human emergence, the performances of primitive man represent a splendid, even a heroic, chapter in the annals of an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52:1.5 (590.1) Early evolutionary man is not a colorful creature. In general, these primitive mortals are cave dwellers or cliff residents. They also build crude huts in the large trees. Before they acquire a high order of intelligence, the planets are

있다. 그러나 필사자는 이 초기 시대에 불을 피우고 유지하기를 배우며, 진화하는 사람은 독창적인 상상력이 증가하고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비교적 크고 더 다루기 힘든 동물을 곧 정복한다. 또한 초기 인종들은, 날아다니는 큰 동물을 광범하게 활용한다. 이 거대한 새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통 크기 사람을 쉬지 않고 500마일 이상 운반할 수 있다. 어떤 행성에서 이 새는 높은 계층의 지성을 지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종종 그 영역의 언어 가운데 여러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 새는 가장 지성적이고, 매우 유순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애롭다. 그런 여객용 새는 **유란시아**에서 사라진지 오래 됐지만, 너희의 초기 조상은 이 새들의 도움을 받았다.

사람의 윤리적 판단, 즉 도덕적 의지를 습득하는 것은, 대개 초기의 언어가 출현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인간 수준이 달성되면, 필사자 의지가 이렇게 출현한 후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울사**의 일시적 내주(內住)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생존자로서 정당하게 선택되고, 그 다음의 부활과 영 융합을 위해서 천사장들의 인가를 받는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 왕자**와 함께 오며, 그 영역의 섭리시대 판결은 왕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사고 조울사가 내주하는 모든 필사자는 잠재적 경배자이며, “참 빛을 받았고”, 신성(神性)과 상호 접촉하기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원시인의 초기 종교, 즉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의 미신이 가미된 동물적 두려움이 지속된 것이다.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미신이 살아 있는 것은, 너희의 진화 발달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진보의 다른 측면에서 너희가 이런 훌륭한 업적과 양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초기에 있던 이 두려움의 종교는, 이 원시 피조물의 불같은 기질을 진압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두려움의 종교는 문명화의 선구자이며, 나중에 **행성 왕자**와 그의 사역자들이 계시 종교의 씨앗을 심는 토양이다.

사람이 직립(直立)을 습득한 때로부터 10만 년 이내에 **행성 왕자**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발달했다라도,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명 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서 **체계 주권자**가 파송한다. 원시 필사자는 대개, **행성 왕자**와 눈에 보이는 그 참모진을 환영하며; 사실, 필사자들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만류하지 않는다면 경배하려고까지 한다.

2. 행성 왕자_이후의 사람

sometimes overrun with the larger types of animals. But early in this era mortals learn to kindle and maintain fire, and with the increase of inventive imagination and the improvement in tools, evolving man soon vanquishes the larger and more unwieldy animals. The early races also make extensive use of the larger flying animals. These enormous birds are able to carry one or two average-sized men for a nonstop flight of over five hundred miles. On some planets these birds are of great service since they possess a high order of intelligence, often being able to speak many words of the languages of the realm. These birds are most intelligent, very obedient, and unbelievably affectionate. Such passenger birds have been long extinct on Urantia, but your early ancestors enjoyed their services.

52:1.6 (590.2) Man's acquirement of ethical judgment, moral will, is usually coincident with the appearance of early language. Upon attaining the human level, after this emergence of mortal will, these beings become receptive to the temporary indwelling of the divine Adjusters, and upon death many are duly elected as survivors and sealed by the archangels for subsequent resurrection and Spirit fusion. The archangels always accompany the Planetary Princes, and a dispensational adjudication of the realm is simultaneous with the prince's arrival.

52:1.7 (590.3) All mortals who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are potential worshipers; they have been “lighted by the true light,” and they possess capacity for seeking reciprocal contact with divinity. Nevertheless, the early or biologic religion of primitive man is largely a persistence of animal fear coupled with ignorant awe and tribal superstition. The survival of superstition in the Urantia races is hardly complimentary to your evolutionary development nor compatible with your otherwise splendid achievements in material progress. But this early fear religion serves a very valuable purpose in subduing the fiery tempers of these primitive creatures. It is the forerunner of civilization and the soil for the subsequent planting of the seeds of revealed religion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ministers.

52:1.8 (590.4) Within one hundred thousand years from the time man acquires erect posture, the Planetary Prince usually arrives, having been dispatched by the System Sovereign upon the report of the Life Carriers that will is functioning, even though comparatively few individuals have thus developed. Primitive mortals usually welcome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visible staff; in fact, they often look upon them with awe and reverence, almost with worshipfulness, if they are not restrained.

2. POST-PLANETARY PRINCE MAN

행성 왕자의 도착과 함께, 새로운 섭리시대가 시작된다. 땅 위에 정부가 태어나고, 진보된 부족의 시기에 도달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사회적 진보가 이뤄진다. 정상 상황에서, 필사자는 이 시기에 높은 상태의 문명에 도달한다. 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야만 상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거주 세계의 생명체가 반역으로 인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 행성에서 그런 체제가 어찌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섭리시대의 평균 길이는 약 50만 년인데, 더러는 이보다 길고, 더러는 이보다 짧다. 이 시기 동안, 그 행성은 체계 회로에서 안정되며, 할당된 숫자의 스랍 및 다른 천상의 도우미 전체가 그 경영에 배정된다. **사고 조율사**가 점점 더 많이 도래하고, 스랍 수호자들은 자신의 필사자 감독 체제를 확장시킨다.

행성 왕자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두려움과 무지로 가득한 진화 종교가 널리 퍼져있다. 왕자와 그의 참모진은, 더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관한 첫 계시를 제공한다. 처음 제시된 이 계시 종교는 매우 단순하며, 대개 지역 체계 직무에 국한돼 있다. **행성 왕자**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종교는 온전히 진화하는 과정이다. 종교는, 그 후에 진화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누적되는 계시로 인해 진보한다. 각 섭리시대, 각 필사자 시기에, 확대된 관념의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가 나타난다. 한 세계의 거주민 가운데서 종교적 수용 능력이 얼마나 진화하느냐가, 대체로 그들의 영적 발전 속도와 종교적 계시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 섭리시대에 영적 여명기가 이뤄지며, 다른 인종들 및 그들의 다양한 부족이, 전문화된 체계의 종교적 및 철학적 사고(思考)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인종적 종교 전반에 두 계통이 균일하게 흐르는데: 원시인의 초기 두려움과, **행성 왕자**의 후기 계시들이다. 어떤 면에서, **유란시아인**은 행성 진보의 이 단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이 연구를 추구함에 따라, 진화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평범한 과정에서 너희 세계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더 분명히 식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성 왕자**는 “**평화의 왕자**”가 아니다. 인종 간 투쟁과 부족 간 전쟁이 이 섭리시대 동안 계속되지만, 횡수와 격렬함은 줄어든다. 이때는 인종이 확산되는 중대한 시대이며, 격렬한 민족주의 시대가 절정에 달한다. 부족끼리 그리고 민족끼리 무리 짓는 기초는 피부색이며, 인종마다 다른 언어를 발달시키곤 한다. 확장하는 각 필사자 집단은 격리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리는 많

52:2.1 (591.1) With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 new dispensation begins. Government appears on earth, and the advanced tribal epoch is attained. Great social strides are made during a few thousand years of this regime. Under normal conditions mortals attain a high state of civilization during this age. They do not struggle so long in barbarism as did the Urantia races. But life on an inhabited world is so changed by rebellion that you can have little or no idea of such a regime on a normal planet.

52:2.2 (591.2) The average length of this dispensation is around five hundred thousand years, some longer, some shorter. During this era the planet is established in the circuits of the system, and a full quota of seraphic and other celestial helpers is assigned to its administration. The Thought Adjusters come in increasing numbers, and the seraphic guardians amplify their regime of mortal supervision.

52:2.3 (591.3) When the Planetary Prince arrives on a primitive world, the evolved religion of fear and ignorance prevails. The prince and his staff make the first revelations of higher truth and universe organization. These initial presentations of revealed religion are very simple, and they usually pertain to the affairs of the local system. Religion is wholly an evolutionary process prior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Subsequently, religion progresses by graduated revelation as well as by evolutionary growth. Each dispensation, each mortal epoch, receives an enlarged presentation of spiritual truth and religious ethics. The evolution of the religious capacity of receptivity in the inhabitants of a world largely determines their rate of spiritual advancement and the extent of religious revelation.

52:2.4 (591.4) This dispensation witnesses a spiritual dawn, and the different races and their various tribes tend to develop specialized systems of religious and philosophic thought. There uniformly run through all of these racial religions two strains: the early fears of primitive men and the later revelations of the Planetary Prince. In some respects Urantians do not seem to have wholly emerged from this stage of planetary evolution. As you pursue this study, you will the more clearly discern how far your world departs from the average course of evolutionary progress and development.

52:2.5 (591.5) But the Planetary Prince is not “the Prince of Peace.” Racial struggles and tribal wars continue over into this dispensation but with diminishing frequency and severity. This is the great age of racial dispersion, and it culminates in a period of intense nationalism. Color is the basis of tribal and national groupings, and the different races often develop separate languages. Each

은 언어가 생겨남으로써 촉진된다. 여러 인종이 통합되기 전에, 그들의 잔인한 전쟁은 때로 전체 민족의 소멸을 초래하기도 하며; 주황색과 녹색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멸(死滅)에 해당된다.

보통 세계들에서, 왕자의 통치 가운데 후반부에, 국가 생활이 부족 조직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부족 집단 위에 겹쳐지게 된다. 그러나 왕자의 시기의 위대한 사회적 업적은 가족 생활의 출현이다. 이전까지는 인간관계가 주로 부족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정의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이때는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섭리시대다. 어떤 행성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으며; 다른 행성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이 시대에 정상적인 세계들은 완전한 남녀평등을 이룩하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상(理想)을 더욱 실현하게 되는 예비단계다. 이때가 가정의 황금기의 시작이다. 부족 통치 관념은, 국가 생활과 가족 생활이라는 이중 개념에게 점점 길을 내준다.

이 시기에 농업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관념의 성장은, 방랑하고 불안정한 사냥꾼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정된 거주지와 땅을 경작하는 풍습이 점차 수립된다. 동물 길들이기와 가사(家事) 발달이 신속히 진행된다. 생물학적 진화가 정상(頂上)에 도달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문명이 달성되지만, 기계가 활용되는 체제는 거의 발달되지 않으며, 발명은 이어지는 시대의 특징이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인종들은 순화되고, 육체는 완전해지며, 지력(知力)은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적인 세계의 초기 발달은, 높은 유형의 필사자의 증가와, 낮은 유형의 필사자의 균형 잡힌 감소를 촉진시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크게 도움 받는다. 너희의 초기 민족들이 이 유형들 사이를 이처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불완전하고 퇴보된 개인들이 존재하게 됐다.

왕자의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인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한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인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대부분의 세계는 인종을 정화(淨化)하는 과제에 심각하게 착수했는데, **유란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

인종을 개선하는 이 문제는, 인간 진화에서 이런 초기 시대에 착수했을 때에는 그렇게 광범한 작업이 아니다. 인종이 생존하려고 부족끼리 싸우고 억센 경쟁이 있었던 앞선 시대가, 비정상적이

expanding group of mortals tends to seek isolation. This segregation is favored by the existence of many languages. Before the unification of the several races their relentless warfare sometimes results in the obliteration of whole peoples; the orange and green men are particularly subject to such extinction.

52:2.6 (591.6) On average worlds,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prince's rule, national life begins to replace tribal organization or rather to be superimposed upon the existing tribal groupings. But the great social achievement of the prince's epoch is the emergence of family life. Heretofore, human relationships have been chiefly tribal; now, the home begins to materialize.

52:2.7 (591.7) This is the dispensation of the realization of sex equality. On some planets the male may rule the female; on others the reverse prevails. During this age normal worlds establish full equality of the sexes, this being preliminary to the fuller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home life. This is the dawn of the golden age of the home. The idea of tribal rule gradually gives way to the dual concept of national life and family life.

52:2.8 (592.1) During this age agriculture makes its appearance. The growth of the family idea is incompatible with the roving and unsettled life of the hunter. Gradually the practices of settled habitations and the cultivation of the soil become established.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and the development of home arts proceed apace. Upon reaching the apex of biologic evolution, a high level of civilization has been attained, but there is little development of a mechanical order; invention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ucceeding age.

52:2.9 (592.2) The races are purified and brought up to a high state of physical perfection and intellectual strength before the end of this era. The early development of a normal world is greatly helped by the plan of promoting the increase of the higher types of mortals with proportionate curtailment of the lower. And it is the failure of your early peoples to thus discriminate between these types that accounts for the presence of so many defective and degenerate individuals among the present-day Urantia races.

52:2.10 (592.3) One of the great achievements of the age of the prince is this restriction of the multiplication of mentally defective and socially unfit individuals. Long before the times of the arrival of the second Sons, the Adams, most worlds seriously address themselves to the tasks of race purification, something which the Urantia peoples have not even yet seriously undertaken.

52:2.11 (592.4) This problem of race improvement is not such an extensive undertaking when it is attacked at this early date in human evolution. The preceding period of tribal struggles and rugged

고 불완전한 종족들 대부분을 제거했다. 원시적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부족 사회 조직에서, 마보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진화하는 인간 혈통 중에서 희망 없는 종족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존속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너희 문명의 잘못된 감상주의다.

퇴보된 인간, 즉 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인간에게 쓸데없는 연민을 기울이는 것은, 애정이 아니고 이타주의도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진화하는 인류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퇴보된 종족들을 존속시키지 않으면서, 이타적 감상과 비이기주의적 필사자 사역을 하는 모든 고귀한 특징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수많은 사회 집단 사이에 충분한 차이가 존재한다. 자신의 도덕적 유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자신의 영적 권리를 영원히 파괴당한, 불운하고 가난한 개인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고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3. 아담 이후 사람

진화하는 생명체의 원래 추진력이 자체의 생물학적 과정을 마쳤을 때, 동물이 발달하는 정점에 사람이 도달했을 때, 아들신분의 둘째 계층이 도착하며, 은혜와 보살핌의 둘째 섭리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진화 세계에 해당된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진화 생명체에 도달했을 때, 원시인이 생물학적 척도에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물질 아들과 딸**이 그 행성에 반드시 나타나는 데, **체계 주권자**가 파송한다.

사고 조율사가 **아담** 이후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증여되며, 나중에 **조율사**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이 필사자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한다. **아담**은, 하강하는 **아들**로서 활약하는 동안,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지만, 그의 --직계 및 혼혈-- 행성 자손은, 때가 되면, **신비 관찰자**를 받아들일만한 합당한 후보자가 된다. **아담** 이후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그 행성은 배정받은 숫자대로 천상의 사역자들을 소유하게 되며; 오직 융합하는 **조율사**만 아직 보편적으로 증여되지 않는다.

사냥꾼 및 목자{牧者}의 문명 단계에서, 농업 및 원예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완성하도록, 진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담** 체제의 1차 목적인데, 이 단계는 문명에 부수되는 도시 및 산업의 출현으로 나중에 보충된다. 생물학적 개량자들이 활동하는 10,000년의 이 섭리시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성 왕자**와 **물**

competition in race survival has weeded out most of the abnormal and defective strains. An idiot does not have much chance of survival in a primitive and warring tribal social organization. It is the false sentiment of your partially perfected civilizations that fosters, protects, and perpetuates the hopelessly defective strains of evolutionary human stocks.

52:2.12 (592.5) It is neither tenderness nor altruism to bestow futile sympathy upon degenerated human beings, unsalvable abnormal and inferior mortals. There exist on even the most normal of the evolutionary worlds sufficien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numerous social groups to provide for the full exercise of all those noble traits of altruistic sentiment and unselfish mortal ministry without perpetuating the socially unfit and the morally degenerate strains of evolving humanity. There is abundant opportunity for the exercise of tolerance and the function of altruism in behalf of those unfortunate and needy individuals who have not irretrievably lost their moral heritage and forever destroyed their spiritual birthright.

3. POST-ADAMIC MAN

52:3.1 (592.6) When the original impetus of evolutionary life has run its biologic course, when man has reached the apex of animal development, there arrives the second order of sonship, and the second dispensation of grace and ministry is inaugurated. This is true on all evolutionary worlds. When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evolutionary life has been attained, when primitive man has ascended as far as possible in the biologic scal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lways appear on the planet, having been dispatched by the System Sovereign.

52:3.2 (593.1) Thought Adjusters are increasingly bestowed upon the post-Adamic men, and in constantly augmented numbers these mortals attain capacity for subsequent Adjuster fusion. While functioning as descending Sons, the Adams do not possess Adjusters, but their planetary offspring — direct and mixed — become legitimate candidates for the reception, in due time, of the Mystery Monitors. By the termination of the post-Adamic age the planet is in possession of its full quota of celestial ministers; only the fusion Adjusters are not yet universally bestowed.

52:3.3 (593.2) It is the prime purpose of the Adamic regime to influence evolving man to complete the transit from the hunter and herder stage of civilization to that of the agriculturist and horticulturist, to be later supplemented by the appearance of the urban and industrial adjuncts to civilization. Ten thousand years of this dispensation of the biologic uplifters is sufficient to

질 아들들의 공동 지혜로 말미암는 그런 경영을 25,000년 동안 거치면, 그 구체는 대개 **집정관 아들**이 도래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는다.

이 시대에는 대개, 부적합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완성되고, 인종별 혈통들이 더욱 정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며; 정상적인 세계의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야만적 경향이, 그 영역의 번식하는 혈통들로부터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

아담의 자손은, 진화 인종들 중에서 열등한 종족과는 결코 피를 섞지 않는다. 또한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진화하는 사람들과 몸소 짝짓는 것은 신{神}의 계획이 아니다. 이 인종 개선 계획은 그들의 후손의 과제다. 그러나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은, 인종 혼합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준비된다.

필사 인종들에게 **아담**의 생명 원형질{原形質}을 선물한 결과로, 지적 수용력이 즉각 향상되고 영적 진보가 촉진된다. 대개 약간의 육신적 증진도 따라온다. 평범한 세계의 경우에 **아담** 이후 섭리시대는, 위대한 발명, 에너지 통제, 및 기계의 발달이 있는 시대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이 출현하고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시대이며; 행성을 탐험하고 마침내 정복하는 황금기다. 한 세계의 물질적 진보 대부분은, 자연 과학의 발달이 개시되는 이 시기 동안에 발생되는데, **유란시아**가 현재 체험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시기다. 너희 세계는 평범한 행성의 시간표보다 한 섭리시대 이상 뒤떨어져 있다.

정상적인 행성에서는, **아담** 섭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인종들이 실제로 혼합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한 피로 모든 나라를 만드셨고**”, 그의 **아들**이 “모든 민족을 하나의 색으로 만드셨다”고 정말로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피가 섞인 인종의 혈색은, 보라색 바탕에 올리브색이 깃든 어떤 것, 즉 그 구체의 인종적 “백색”이다.

원시인은 주로 육식{肉食}을 하며; **물질 아들**과 **딸**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후손은 대개 잡식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때로는 그들의 후손 전체가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아담** 이후 인종들의 이 이중 기원은, 피가 섞인 그런 인간 혈통들이 어떻게 해서, 채식을 하는 동물 집단은 물론 육식을 하는 동물 집단의 해부학적 흔적을 함께 나타내는지, 설명해 준다.

인종의 혼합이 시작된 지 10,000년 이내에, 그 결과로 생긴 혈통들은 다양한 정도의 해부학적 혼합을 보여주는데, 어떤 종족은 고기를 먹지 않는 조상의 흔적을 더 많이 지니고, 다른 혈통은 자

effect a marvelous transformation. Twenty-five thousand years of such an administration of the conjoint wisdom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s usually ripens the sphere for the advent of a Magisterial Son.

52:3.4 (593.3) This age usually witnesses the completion of the elimination of the unfit and the still further purification of the racial strains; on normal worlds the defective bestial tendencies are very nearly eliminated from the reproducing stocks of the realm.

52:3.5 (593.4) The Adamic progeny never amalgamate with the inferior strains of the evolutionary races. Neither is it the divine plan for the Planetary Adam or Eve to mate, personally, with the evolutionary peoples. This race-improvement project is the task of their progeny. But the offspring of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mobilized for generations before the racial-amalgamation ministry is inaugurated.

52:3.6 (593.5) The result of the gift of the Adamic life plasm to the mortal races is an immediate upstepping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an acceleration of spiritual progress. There is usually some physical improvement also. On an average world the post-Adamic dispensation is an age of great invention, energy control, and mechanical development. This is the era of the appearance of multiform manufacture and the control of natural forces; it is the golden age of exploration and the final subduing of the planet. Much of the material progress of a world occurs during this time of the inaugu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sciences, just such an epoch as Urantia is now experiencing. Your world is a full dispensation and more behind the average planetary schedule.

52:3.7 (593.6) By the end of the Adamic dispensation on a normal planet the races are practically blended, so that it can be truly proclaimed that “God has made of one blood all the nations,” and that his Son “has made of one color all peoples.” The color of such an amalgamated race is somewhat of an olive shade of the violet hue, the racial “white” of the spheres.

52:3.8 (593.7) Primitive man is for the most part carnivorou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do not eat meat, but their offspring within a few generations usually gravitate to the omnivorous level, although whole groups of their descendants sometimes remain nonflesh eaters. This double origin of the post-Adamic races explains how such blended human stocks exhibit anatomic vestiges belonging to both the herbivorous and carnivorous animal groups.

52:3.9 (593.8) Within ten thousand years of racial amalgamation the resultant stocks show varying degrees of anatomic blend, some strains carrying more of the marks of the nonflesh-eating ancestry,

신의 육식성{肉食性} 진화 조상의 특색을 띤 특징과 육신적 특질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 세계 인종들 대부분은 곧 잡식성{雜食性}을 갖게 되는데, 동물군과 식물군 양쪽에서 광범하게 음식물을 섭취한다.

아담 이후의 시기는 국제화되는 섭리시대다. 인종을 혼합시키는 과제가 거의 완성되면서,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사람의 형제관계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의 정부가, 군주{君主} 형태 또는 세습 형태의 통치체제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교육 체제가 세계화되고, 인종들의 언어는 보라색 민족의 방언으로 대치된다. 보편적 평화와 협동은, 인종들이 매우 잘 혼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할 때까지 성취되기 힘들다.

아담 이후 시대가 마감되는 세기{世紀}들 동안, 예술, 음악, 및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달하며, 이런 범세계적 각성은, **집정관 아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신호다. 이 시대의 최고 발달은, 지적 실체, 즉 참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민족 특성이 줄어들고, 점점 더 행성의 직무가 되어간다. 새로운 진리 계시가 이 시절의 특징이며, 성좌의 **지고자**들이 사람의 직무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진리는 성좌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계시된다.

위대한 윤리적 진보가 이 시대의 특징이며; 사람의 형제관계가 그 사회의 목표다. 범세계적 평화는--곧 인종 갈등과 민족적 증오의 증지는-- 셋째 계층의 아들신분, 즉 **집정관 아들**이 출현할 만큼 행성이 성숙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指標}다.

4. 집정관 아들_이후의 사람

정상적이고 충성스런 행성의 경우에, 이 시대는 피가 섞이고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필사자 인종들과 함께 시작된다. 인종 문제, 즉 색깔 문제가 없으며; 정말로 모든 나라와 인종이 한 핏줄이다. 사람의 형제관계가 번창하고, 나라들은 평화와 평정 속에서 지내기를 배운다. 그런 세계는 위대한 지적 발전의 절정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진화 세계가 이처럼 **집정관** 시대를 위해 무르익게 될 때, 높은 계층의 **아보날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집정관 사명을 띠고 모습을 드러낸다.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들은 지방우주에서 기원되며; **집정관 아들**은 **낙원**으로부터 온다.

사법적 조치를 위해 오직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 필사자 구체에 올 때, **낙원 아보날**은 결코 육

others exhibiting more of the distinguishing trait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carnivorous evolutionary progenitors. The majority of these world races soon become omnivorous, subsisting upon a wide range of viands from both the animal and vegetable kingdoms.

52:3.10 (594.1) The post-Adamic epoch is the dispensation of internationalism. With the near completion of the task of race blending, nationalism wanes, and the brotherhood of man really begins to materialize. Representative government begins to take the place of the monarchical or paternal form of rulership. The educational system becomes world-wide, and gradually the languages of the races give way to the tongue of the violet people. Universal peace and co-operation are seldom attained until the races are fairly well blended, and until they speak a common language.

52:3.11 (594.2) During the closing centuries of the post-Adamic age there develops new interest in art, music, and literature, and this world-wide awakening is the signal for the appearance of a Magisterial Son. The crowning development of this era is the universal interest in intellectual realities, true philosophy. Religion becomes less nationalistic, becomes more and more a planetary affair. New revelations of truth characterize these ages, and the Most Highs of the constellations begin to rule in the affairs of men. Truth is revealed up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s.

52:3.12 (594.3) Great ethical advancement characterizes this era; the brotherhood of man is the goal of its society. World-wide peace — the cessation of race conflict and national animosity — is the indicator of planetary ripeness for the advent of the third order of sonship, the Magisterial Son.

4. POST-MAGISTERIAL SON MAN

52:4.1 (594.4) On normal and loyal planets this age opens with the mortal races blended and biologically fit. There are no race or color problems; literally all nations and races are of one blood. The brotherhood of man flourishes, and the nations are learning to live on earth in peace and tranquillity. Such a world stands on the eve of a great and culminating intellectual development.

52:4.2 (594.5) When an evolutionary world becomes thus ripe for the magisterial age, one of the high order of Avonal Sons makes his appearance on a magisterial mission.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s are of local universe origin; the Magisterial Son hails from Paradise.

52:4.3 (594.6) When the Paradise Avonals come to the mortal spheres on judicial actions, solely as dispensation adjudicators, they are never

신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집정관** 사명을 띠고 올 때에는, 적어도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육신화하는데, 출생을 체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 특정한 행성에 통치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에,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살지도 모른다. 사명이 완료되면, 그들은 행성에서 생애를 완료하고, 이전{以前}의 신성한 아들 신분 상태로 돌아간다.

게시된 종교의 지평선을, 각각의 새로운 섭리시대가 확장하며, **집정관 아들**들은, 지방우주 및 그 종속부서들의 모든 직무를 묘사하기 위해 진리의 계시를 확대한다.

집정관 아들의 첫 방문이 있는 후에, 인종들은 곧 경제적 해방을 이룩한다. 한 사람이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 작업은, 너희 시간으로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필사자를 해방시키더라도 틀림없이 안전하다. 그런 세련된 사람들은, 자아_개선과 행성 진보를 위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안다. 적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자질을 타고난 개인들 사이의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이 시대는 인종별 혈통이 추가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인종들의 정치적 통치와 사회 경영이 계속 개선되는데, 이 시대가 종료될 무렵까지, 자체_정부가 상당히 정착돼 있다. 우리가 자체_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유형의 대의 정부를 의미한다. 그런 세계들은,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지도자와 통치자들만 승진시키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시절에, 세상 필사자 대부분에게 **조율사**가 내주한다. 그러나 아직 신성한 **관찰자** 증여가 항상 보편적이지는 않다. 융합할 운명을 가진 **조율사**는, 아직 모든 행성 필사자에게 증여되지는 않았으며;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신비 관찰자**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섭리시대가 마감되는 시절에, 사회는 비교적 단순해진 생활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복잡한 성질을 가진 진보하는 문명이 그 과정을 마치고, 필사자는 더 자연스럽게 능률적으로 살기를 배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어지는 각 시기마다 증가한다. 이때는 예술, 음악, 그리고 더 높은 배움이 꽃피는 시대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 시대가 끝나면, 위대한 종교적 각성, 즉 범세계적인 영적 계몽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인종들의 영적 본성이 이렇게 널리 각성되는 것은, 증여 **아들**이 도착하고 다섯째 필사자 시기가 개시된다는 신호다.

많은 세계에서, 한 번의 집정관 사명으로는 증여 **아들**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 두 번째, 그리고 심지어 여러 **집정관 아**

incarnated. But when they come on magisterial missions, at least the initial one, they are always incarnated, though they do not experience birth, neither do they die the death of the realm. They may live on for generations in those cases where they remain as rulers on certain planets. When their missions are concluded, they yield up their planetary lives and return to their former status of divine sonship.

52:4.4 (594.7) Each new dispensation extends the horizon of revealed religion, and the Magisterial Sons extend the revelation of truth to portray th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 and all its tributaries.

52:4.5 (594.8) After the initial visitation of a Magisterial Son the races soon effect their economic liberation. The daily work required to sustain one's independence would be represented by two and one-half hours of your time. It is perfectly safe to liberate such ethical and intelligent mortals. Such refined peoples well know how to utilize leisure for self-improvement and planetary advancement. This age witnesses the further purification of the racial stocks by the restriction of reproduction among the less fit and poorly endowed individuals.

52:4.6 (595.1) The political government and social administration of the races continue to improve, self-government being fairly well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age. By self-government we refer to the highest typ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Such worlds advance and honor only those leaders and rulers who are most fit to bear soci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52:4.7 (595.2) During this epoch the majority of the world mortals are Adjuster indwelt. But even yet the bestowal of divine Monitors is not always universal. The Adjusters of fusion destiny are not yet bestowed upon all planetary mortals; it is still necessary for the will creatures to choose the Mystery Monitors.

52:4.8 (595.3) During the closing ages of this dispensation, society begins to return to more simplified forms of living. The complex nature of an advancing civilization is running its course, and mortals are learning to live more naturally and effectively. And this trend increases with each succeeding epoch. This is the age of the flowering of art, music, and higher learning. The physical sciences have already reached their height of development. The termination of this age, on an ideal world, witnesses the fullness of a great religious awakening, a world-wide spiritual enlightenment. And this extensive arousal of the spiritual natures of the races is the signal for the arrival of the bestowal Son and for the inauguration of the fifth mortal epoch.

52:4.9 (595.4) On many worlds it develops that the planet is not made ready for a bestowal Son by one magisterial mission; in that event there will be

들이 이어질 것인데, 그 행성이 증여 **아들**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각자 한 섭리시대에서 다른 섭리시대로 그 인종들을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 및 그 후의 사명에서 **집정관 아들**들은 육신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집정관 아들**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은 증여 **아들** 이후에 그런 자격으로 올 수도 있는데-- 각 **집정관 아들**의 출현은 한 섭리시대의 끝과 다른 섭리시대의 시작을 표시한다.

집정관 아들들의 이 여러 섭리시대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5천 년부터 5만 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간이든지 해당된다. 때로는 그런 시기가 매우 짧으며, 드문 경우에 더 길기도 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바로 이 **집정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낙원** 증여 **아들**로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5. 증여 아들_이후의 사람

인간계주 세계에서 지적 및 영적 발달이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 한 **낙원** 증여 **아들**이 반드시 도래한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인종들이 지적 발달 및 윤리적 달성의 최고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 증여 **아들**이, 아니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아담** 섭리시대가 마감될 때 나타났지만, 이것은 공간 세계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통상적 순서가 아니다.

세계들이 영성화를 위해 무르익었을 때, 증여 **아들**이 도래한다. 이 **아들**들은 반드시 **집정관** 계층, 즉 **아보날** 계층에 속하는데, 예외는, **네바돈의 미가엘**이 너희 필사자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서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와 같이, 각 지방우주마다 한 번, **창조주 아들**이 어느 진화 세계에서 그의 마지막 증여를 준비할 때다. 거의 1,000만 세계 중에서 오직 한 세계만이 그런 선물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세계는 **아보날** 계층의 **낙원 아들**이 증여됨으로써 영적으로 진보한다.

증여 **아들**은 높은 교육 문화를 가진 세계에 도래하며, 진보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증여 사명을 인정하도록,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인종과 만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를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섭리시대에 필사자가 열망하는 것은, 시공우주 실체를 통찰하고 영적 실체와 친교하는 것이다. 진리의 계시는 연방우주를 포함할 정도까지 확장된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및 정부 체계가, 이전{以前} 시대의 조잡한 체제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삶에 대한 기쁨이 새로운 색조를 띠고, 생명의 반응은 하늘처럼 높은 음조와 음색을 갖기까지 고양된다.

a second, even a succession of Magisterial Sons, each of whom will advance the races from one dispensation to another until the planet is made ready for the gift of the bestowal Son. On the second and subsequent missions the Magisterial Sons may or may not be incarnated. But no matter how many Magisterial Sons may appear — and they may also come as such after the bestowal Son — the advent of each one marks the end of one dispensa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52:4.10 (595.5) These dispensations of the Magisterial Sons cover anywhere from twenty-five thousand to fifty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Sometimes such an epoch is much shorter and in rare instances even longer. But in the fullness of time one of these same Magisterial Sons will be born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5. POST-BESTOWAL SON MAN

52:5.1 (595.6) When a certain standard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is attained on an inhabited world, a Paradise bestowal Son always arrives. On normal worlds he does not appear in the flesh until the races have ascended to the highest levels of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ethical attainment. But on Urantia the bestowal Son, even your own Creator Son, appeared at the close of the Adamic dispensation, but that is not the usual order of events on the worlds of space.

52:5.2 (595.7) When the worlds have become ripe for spiritualization, the bestowal Son arrives. These Sons always belong to the Magisterial or Avonal order except in that case, once in each local universe, when the Creator Son prepares for his terminal bestowal on some evolutionary world, as occurred when Michael of Nebadon appeared on Urantia to bestow himself upon your mortal races. Only one world in near ten million can enjoy such a gift; all other worlds are spiritually advanced by the bestowal of a Paradise Son of the Avonal order.

52:5.3 (595.8) The bestowal Son arrives on a world of high educational culture and encounters a race spiritually trained and prepared to assimilate advanced teachings and to appreciate the bestowal mission. This is an age characterized by the world-wide pursuit of moral culture and spiritual truth. The mortal passion of this dispensation is the penetration of cosmic reality and communion with spiritual reality. The revelations of truth are extended to include the superuniverse. Entirely new systems of education and government grow up to supplant the crude regimes of former times. The joy of living takes on new color, and the reactions of life are exalted to heavenly heights of tone and timbre.

증여 **아들**은 한 세계의 필사자 인종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그가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설립하며; 그의 생애는 **낙원**의 진리가 필사자의 몸을 입고 육신화 된 것인데, 바로 그 진리를--심지어 **진리의 영**까지도-- 앞으로써 사람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의 수립이, 진리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도 했다.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유란시아**가 고립됨으로써, 필사자들이 죽고 나서 맨션 세계들의 기슭으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과정이 중지됐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날들 이전에는, 섭리시대 또는 1,000년마다 특별 부활이 있을 때까지, 모든 혼이 잠들어 있었다. 심지어 **모세**도, 특별 부활의 기회가 올 때까지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허용되지 않았는데, 타락한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는 그런 구원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계속,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다시 모론시아 구체들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육신화된 생명을 버린 후 셋째 날에, 증여 **아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상승하여, 증여 사명이 인정받았음을 확인 받게 되며, 지방우주 본부에 있는 **창조주 아들**에게로 돌아온다. 그 결과로, 증여된 **아보날**과 **창조주 미가엘**이 자신들의 연합 영, 즉 **진리의 영**을 증여 세계 속으로 보낸다. 이것이, “승리의 **아들**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여되는” 그 사건이다. **우주 어머니 영** 역시 **진리의 영**을 이렇게 증여하는 데 참여하며, 이와 동시에 **사고 조율사**들을 증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 후로 그 세계에서 정상적인_정신과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영적 선택을 하는 나이에 이르는 즉시, **조율사**를 받을 것이다.

그런 증여된 **아보날**이 증여 사명을 마친 후에 어떤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는 육신화 함으로가 아니라, “스랍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증여 **아들** 이후의 시대는 1만 년에서 10만 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섭리시대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독단적으로 기간이 할당되지 않는다. 이때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시기다. 이런 시절의 영적 영향 아래서, 인간 성품은 엄청난 변형을 거치고, 경이로운 발달을 체험한다. 황금률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성품을 고귀하게 하고 교양을 증대시키는 섭리시대들과 함께, 증여 **아들**들이 오기 전의 예비 훈련을 마친 그런 필사자 세계에서는, **예수**의 교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시대 동안에 질병과 범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선택적으로 번식함으로써 퇴화가 이미 대체로 제거됐다. 질병은, **아담** 혈통들의 높

52:5.4 (596.1) The bestowal Son lives and dies for the spiritual uplift of the mortal races of a world. He establishes the “new and living way”; his life is an incarnation of Paradise truth in mortal flesh, that very truth — even the Spirit of Truth — in the knowledge of which men shall be free.

52:5.5 (596.2) On Urantia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and living way” was a matter of fact as well as of truth. The isolation of Urantia in the Lucifer rebellion had suspended the procedure whereby mortals can pass, upon death, directly to the shores of the mansion worlds. Before the day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all souls slept on until the dispensational or special millennial resurrections. Even Moses was not permitted to go over to the other side until the occasion of a special resurrection, the fallen Planetary Prince, Caligastia, contesting such a deliverance. But ev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Urantia mortals again may proceed directly to the morontia spheres.

52:5.6 (596.3) Upon the resurrection of a bestowal Son, on the third day after yielding up his incarnated life, he ascends to the right hand of the Universal Father, receives the assurance of the acceptance of the bestowal mission, and returns to the Creator S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ereupon the bestowal Avonal and the Creator Michael send their joint spirit, the Spirit of Truth, into the bestowal world. This is the occasion when the “spirit of the triumphant Son is poured out upon all flesh.” The Universe Mother Spirit also participates in this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and concomitant therewith there issues the bestowal edict of the Thought Adjusters. Thereafter all normal-minded will creatures of that world will receive Adjusters as soon as they attain the age of moral responsibility, of spiritual choice.

52:5.7 (596.4) If such a bestowal Avonal should return to a world after the bestowal mission, he would not incarnate but would come “in glory with the seraphic hosts.”

52:5.8 (596.5) The postbestowal Son age may extend from ten thousand to a hundred thousand years. There is no arbitrary time allotted to any of these dispensational eras. This is a time of great ethical and spiritual progress. Under the spiritual influence of these ages, human character undergoes tremendous transformations and experiences phenomenal development. It becomes possible to put the golden rule into practical operation. The teachings of Jesus are really applicable to a mortal world which has had the preliminary training of the prebestowal Sons with their dispensations of character ennoblement and culture augmentation.

52:5.9 (596.6) During this era the problems of disease and delinquency are virtually solved. Degeneracy has already been largely eliminated by selective

은 저항 특성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대에 자연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영리하게 범세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정복됐다. 이 기간에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년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진다.

정부의 감독이 이 시기 내내 점차 감소된다. 참된 자체 정부가 활동하기 시작하며, 구속하는 법률이 점점 필요 없게 된다. 국가적 저항을 담당하는 군사 분야들이 사라지며, 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실제로 도래한다. 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는 대체로 땅 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만, 오직 한 인종, 한 언어, 그리고 한 종교만 있다. 필사자의 직무는 거의 이상{理想}에 가깝지만, 완전히 그렇지 않다. 이때는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런 시대다!

6. 유란시아의 증여_이후 시대

증여 **아들**은 **평화의 왕자**다. 그는, “땅에는 평화라, 사람 가운데는 선의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다. 정상 세계에서는 이것이 전{全}_세계적 평화의 섭리시대이며,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증여 **아들**인 **그리스도 미가엘**의 도래에는, 그런 유익한 영향이 수반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너희 세계는 행성의 행렬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다. 너희의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출현이 **유란시아**에서 통상적인 평화의 통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말쑼했다. 또 그는 다른 경우에,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쑼했다.

심지어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도, 사람의 범_세계적 형제관계의 실현은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처럼 혼동되고 질서가 없는 행성에서 그런 성취는, 훨씬 긴 시간을 요구하며,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영적으로 고립된 구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진화로는 그런 행복한 결과를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 **유란시아**에서 형제관계가 실현되려면 종교적 계시가 필수다. **예수**는 영적 형제관계의 즉각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줬지만, 너희 세계에서 사회적 형제관계가 실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개인의 변화와 행성의 조정을 성취하는 데 크게 달려있다:

1. **사회적 우애**. 여행, 상업, 및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및 인종 간 사회적 접촉과 우애 관계의 증가. 공통 언어 개발과 여러 언어 사용자들의 증가. 학생, 선생, 사업가, 그리고 종교 철학자들의 인종 간 및 국가 간 교류.

reproduction. Disease has been practically mastered through the high resistant qualities of the Adamic strains and by the intelligent and world-wide application of the discoveries of the physical sciences of preceding ages. The average length of life, during this period, climbs well above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52:5.10 (597.1) Throughout this epoch there is a gradual lessening of governmental supervision. True self-government is beginning to function; fewer and fewer restrictive laws are necessary. The military branches of national resistance are passing away; the era of international harmony is really arriving. There are many nations, mostly determined by land distribution, but only one race, one language, and one religion. Mortal affairs are almost, but not quite, utopian. This truly is a great and glorious age!

6. URANTIA'S POST-BESTOWAL AGE

52:6.1 (597.2) The bestowal Son is the Prince of Peace. He arrives with the messag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On normal worlds this is a dispensation of world-wide peace; the nations no more learn war. But such salutary influences did not attend the coming of your bestowal Son, Christ Michael. Urantia is not proceeding in the normal order. Your world is out of step in the planetary procession. Your Master, when on earth, warned his disciples that his advent would not bring the usual reign of peace on Urantia. He distinctly told them that there would be “wars and rumors of wars,” and that nation would rise against nation. At another time he said,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upon earth.”

52:6.2 (597.3) Even on normal evolutionary worlds the realization of the world-wide brotherhood of man is not an easy accomplishment. On a confused and disordered planet like Urantia such an achievement requires a much longer time and necessitates far greater effort. Unaided social evolution can hardly achieve such happy results on a spiritually isolated sphere. Religious revelation is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brotherhood on Urantia. While Jesus has shown the way to the immediate attainment of spiritual brotherhood, the realization of social brotherhood on your world depends much on the achievement of the following personal transformations and planetary adjustments:

52:6.3 (597.4) 1. *Social fraternity*. Multiplic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racial social contacts and fraternal associations through travel, commerce, and competitive play. Development of a common language and the multiplication of multilinguists. The racial and national interchange of students, teachers, industrialists, and religious philosophers.

2. **지적 상호_교류.** 거주자들이 너무 원시적 이어서, 완화된지 않은 이기주의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형제관계가 불가능하다. 국가적 및 인종적 학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각 인종마다 전체 인종의 사고{思考}에 익숙해져야 하며,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연민과 사랑이라는 필수적인 태도와 양립될 수 없다.

3. **윤리적 각성.** 인간의 편협함이 부도덕하며, 동족을 죽이는 투쟁이 죄라는 것을,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폭로할 수 있다. 국가 간 질투와 인종 간 시기심이라는 악을, 오직 도덕적 양심만이 책망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황금률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영적 통찰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4. **정치적 지혜.** 감정의 성숙이 자아_통제에 필수적이다. 오로지 감정이 성숙해야만, 야만스런 전쟁으로 판결하는 대신, 국제적 기법으로 개화된 판결을 내리도록 보장할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들은, 자신의 국가 또는 인종 집단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동안에도, 인류 복지를 위해서 언젠가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기만성은 결국 자멸한다--행성에서 집단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 모든 영속하는 특성을 파괴한다.

5. **영적 통찰력.** 사람의 형제관계는, 결국, **하 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데 달려있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관계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하는 자연스런 추세를 촉진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위로부터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필사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각 필사자의 혼 수용력을 증진시키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형제간 사랑은,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탁월한 처방이요, 사람의 형제관계를 범_세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강력한 요소다.

뒤떨어지고 뒤죽박죽된 너희 세계로부터, 중여 **아들** 이후 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정상 행성으로, 지금 너희를 데려갈 수만 있다면, 너희는 전승들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로 옮겨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필사 구체의 정상적 진화 활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도저히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들 영역의 영적 회로 속에 있으며, 그들은 모두 지방우주 방송과 연방우주 반사성 봉사의 혜택을 누린다.

7. 교사 아들_이후의 사람

평범한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그 다음 계층의 **아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 즉 **낙원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이다. 너희의 **예수**께서 돌아오기로 약

52:6.4 (597.5)

2. *Intellectual cross-fertilization.* Brotherhood is impossible on a world whose inhabitants are so primitive that they fail to recognize the folly of unmitigated selfishness. There must occur an exchange of national and racial literature. Each race must become familiar with the thought of all races; each nation must know the feelings of all nations. Ignorance breeds suspicion, and suspicion is incompatible with the essential attitude of sympathy and love.

52:6.5 (597.6)

3. *Ethical awakening.* Only ethical consciousness can unmask the immorality of human intolerance and the sinfulness of fratricidal strife. Only a moral conscience can condemn the evils of national envy and racial jealousy. Only moral beings will ever seek for that spiritual insight which is essential to living the golden rule.

52:6.6 (598.1)

4. *Political wisdom.* Emotional maturity is essential to self-control. Only emotional maturity will insure the substitution of international techniques of civilized adjudication for the barbarous arbitrament of war. Wise statesmen will sometime work for the welfare of humanity even while they strive to promote the interest of their national or racial groups. Selfish political sagacity is ultimately suicidal — destructive of all those enduring qualities which insure planetary group survival.

52:6.7 (598.2)

5. *Spiritual insight.* The brotherhood of man is, after all, predicated on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The quickest way to realize the brotherhood of man on Urantia is to effect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present-day humanity. The only technique for accelerating the natural trend of social evolution is that of applying spiritual pressure from above, thus augmenting moral insight while enhancing the soul capacity of every mortal to understand and love every other mortal. Mutual understanding and fraternal love are transcendent civilizers and mighty factors in the world-wid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52:6.8 (598.3)

If you could be transplanted from your backward and confused world to some normal planet now in the postbestowal Son age, you would think you had been translated to the heaven of your traditions. You would hardly believe that you were observing the normal evolutionary workings of a mortal sphere of human habitation. These worlds are in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ir realm, and they enjoy all the advantages of the universe broadcasts and the reflectivity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7. POST-TEACHER SON MAN

52:7.1 (598.4)

The Sons of the next order to arrive on the average evolutionary world are the Trinity Teacher Sons, the divine Sons of the Paradise

속한 것에서도, 우리는 **유란시아**가 이웃 구체들보다 뒤떨어졌음을 다시 발견한다. 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지만, 그의 두 번째 도래가 **집정관 아들** 또는 **교사 아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보다 먼저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교사 아들은 영성화 되는 그 세계들로 무리를 지어 도래한다. 한 명의 행성 **교사 아들**이, 70명의 1차 **아들**, 열두 명의 2차 **아들**, 그리고 최상 계층의 **데이날**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도움과 후원을 받는다. 이 단체는 진화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변환되기에 충분한 만큼 오랫동안--곧 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 그리고 종종 상당히 더 길게-- 그 세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은, 인간거주 세계에 공헌한 모든 신성한 인격체가 이전에 수고한 것에, **삼위일체**가 기여하는 것이다.

진리의 계시는 이제 중앙우주와 **낙원**까지 확장된다. 인종들은 고도로 영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위대한 민족이 진화했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행성의 교육, 경제, 및 경영 체계가 급진적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관계들이 수립되고 있다. 하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때는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로부터 많은 필사자가 옮겨지는 섭리시대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의 영적 현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된다. 육신 속의 인생 동안에 **조율사**가 그 상대자(相對者)와 점점 더 많이 융합됨에 따라서, 자연사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 행성은 결국 변경된 1차 계층의 필사자 상승 행성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 동안의 생애는 즐겁고 유익하다. 오랜 진화 투쟁에서 퇴보된 것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최종 산물은 실질적으로 제거됐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이르게 되며, 인종을 증가시키는 번식 비율이 이성적으로 통제된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필사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관계와 영적 평등이라는 이상(理想)에 더 가깝게 접근한다. 대의 정부는 사라지고, 세상은 각 개인의 자아-통제의 지배를 받으며 나아간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 경영과 경제 조정이라는 집단 과제에 주로 집중된다. 황금기가 신속하게 다가오며; 길고 격렬한 행성 진화 투쟁이 현재에 달성할 목표가 눈 앞에 있다. 오래 기다리던 보상이 곧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들의 지혜가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어른 개인마다 세상의 물리적

Trinity. Again we find Urantia out of step with its sister spheres in that your Jesus has promised to return. That promise he will certainly fulfill, but no one knows whether his second coming will precede or follow the appearances of Magisterial or Teacher Sons on Urantia.

52:7.2 (598.5) The Teacher Sons come in groups to the spiritualizing worlds. A planetary Teacher Son is assisted and supported by seventy primary Sons, twelve secondary Sons, and three of the highest and most experienced of the supreme order of Daynals. This corps will remain for some time on the world, long enough to effect the transition from the evolutionary ages to the era of light and life — not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of planetary time and often considerably longer. This mission is a Trinity contribution to the antecedent efforts of all the divine personalities who have ministered to an inhabited world.

52:7.3 (598.6) The revelation of truth is now extended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o Paradise. The races are becoming highly spiritual. A great people has evolved and a great age is approaching. The education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the planet are undergoing radical transformations. New values and relationships are being established. The kingdom of heaven is appearing on earth, and the glory of God is being shed abroad in the world.

52:7.4 (598.7) This is the dispensation when many mortals are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As the era of Trinity Teacher Sons progresses, the spiritual allegiance of the mortals of time becomes more and more universal. Natural death becomes less frequent as the Adjusters increasingly fuse with their subjects during the lifetime in the flesh. The planet eventually is classed as of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mortal ascension.

52:7.5 (599.1) Life during this era is pleasant and profitable. Degeneracy and the antisocial end products of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have been virtually obliterated. The length of life approaches five hundred Urantia years, and the reproductive rate of racial increase is intelligently controlled. An entirely new order of society has arrived. There are still great differences among mortals, but the state of society more nearly approaches the ideals of social brotherhood and spiritual equality.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vanishing, and the world is passing under the rule of individual self-control. The function of government is chiefly directed to collective tasks of social administration and economic co-ordination. The golden age is coming on apace; the temporal goal of the long and intense planetary evolutionary struggle is in sight. The reward of the ages is soon to be realized; the wisdom of the Gods is about to be manifested.

52:7.6 (599.2) The physical administration of a world

경영을 위해서 매일 한 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의 한 시간에 해당한다. 그 행성은 우주 직무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희가 일간 신문 중에서 가장 최근 판에 지금 흥미를 보이는 것과 똑같은 흥미를 갖고, 최근 방송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인종들은 너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관심거리에 빠져있다.

지존하신 분에 대한 행성의 충성심이 점점 자라간다. 대대로 점점 더 많은 인종이, 공의를 실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다. 세상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쁨에 넘치는 봉사에 설득된다. 육신의 어려움과 물질 문제는 거의 해결됐으며; 행성은 크게 진보된 생애와 더 안정된 실존을 누릴 때가 되고 있다.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섭리시대 내내, 이 평화로운 세계들에 때때로 계속 도래한다. 진화 계획이 그 행성에 대해 고려했던 대로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은 이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교사 아들**들이 계속되는 사명을 받을 때, 심판을 담당하는 한 **집정관 아들**이 대개 그들을 따라가며, 한편 그들이 떠나갈 때 또 하나의 그런 **아들**이 활동하고,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내내, 이 사법적 조치가 계속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되풀이되는 사명은, 각각 그런 숭고한 세계를, 지혜, 영성(靈性), 및 시공우주 계몽에서 계속 올라가는 수준으로 연달아 승진시킨다. 그러나 그런 구체의 고귀한 원주민은 여전히 유한하고 필사적이다. 아무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완전한 세계의 운영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인간 거주자의 삶에서, 완전성에 가까운 자질이 진화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동일한 그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행성 왕자**가 **행성 주권자**의 자리로 승진되며, 그런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간 것을 선포하기 위해 **체계 주권자**가 나타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왕자를 위해 단장한 공주처럼 준비돼 있었다”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사명이 끝나는 때였다(적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의 연대기일 것이다).

옛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바로 개선된 이 세상, 즉 진보된 행성 단계였는데, 이렇게 기록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고 내 앞에 남게 되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도 생존될 것이며; 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그리고 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

during this age requires about one hour each day on the part of every adult individual; that is, the equivalent of one Urantia hour. The planet is in close touch with universe affairs, and its people scan the latest broadcasts with the same keen interest you now manifest in the latest editions of your daily newspapers. These races are occupied with a thousand things of interest unknown on your world.

52.7.7 (599.3) Increasingly, true planetary allegiance to the Supreme Being grow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more and more of the race step into line with those who practice justice and live mercy. Slowly but surely the world is being won to the joyous service of the Sons of God. The physical difficulties and material problems have been largely solved; the planet is ripening for advanced life and a more settled existence.

52.7.8 (599.4) From time to time throughout their dispensation, Teacher Sons continue to come to these peaceful worlds. They do not leave a world until they observe that the evolutionary plan, as it concerns that planet, is working smoothly. A Magisterial Son of judgment usually accompanies the Teacher Sons on their successive missions, while another such Son functions at the time of their departure, and these judicial actions continue from age to age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mortal regime of time and space.

52.7.9 (599.5) Each recurring mission of the Trinity Teacher Sons successively exalts such a supernal world to ever-ascending heights of wisdom, spirituality, and cosmic illumination. But the noble natives of such a sphere are still finite and mortal. Nothing is perfect; nevertheless, there is evolving a quality of near perfection in the operation of an imperfect world and in the lives of its human inhabitants.

52.7.10 (599.6) The Trinity Teacher Sons may return many times to the same world. But sooner or later,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of one of their missions,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 and the System Sovereign appears to proclaim the entrance of such a world upon the era of light and life.

52.7.11 (599.7) It was of the conclusion of the terminal mission of the Teacher Sons (at least that would be the chronology on a normal world) that John wrote: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princess adorned for the prince.”

52.7.12 (600.1) This is the same renovated earth, the advanced planetary stage, that the olden seer envisioned when he wrote: “For, as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hich I will make, shall remain before me, so shall you and your children surviv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 시대의 필사자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는데, “선택된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민족이요;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이 신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께 찬양을 드릴지니라.”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 역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 영역이 완전히 충성했거나, 악으로 물들었거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았거나 차이 없이--이전의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역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출현하는 시절을 안내할 것이며; 그들이 최종 사명을 마치고 떠나게 되면, 빛과 생명의 이 화려한 시대가 시작된다.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에게 평화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쓴, 어떤 사람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다.

교사 아들 단체의 첫 체제 또는 그 후의 어떤 체제가 끝날 무렵에 이 단체가 떠나가면, 빛과 생명의 시대--곧 시간세계로부터 영원성의 문턱으로 전환되는 입구--가 밝아온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가 행성에서 실현되는 것은,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최고로 바라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데,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하늘나라는 생존하는 필사자가 즉시 마주치는 운명이요 최종 거주지라고 묘사하는 종교적 신념에 포함된 것보다, 미래 생애에 대해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신념을 더 환영하고 있었다.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and from one Sabbath to another all flesh shall come to worship before me,' says the Lord.”

52:7.13 (600.2) It is the mortals of such an age who are described as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 exalted people; and you shall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this marvelous light.”

52:7.14 (600.3) No matter what the special natural history of an individual planet may be, no difference whether a realm has been wholly loyal, tainted with evil, or cursed by sin — no matter what the antecedents may be — sooner or later the grace of God and the ministry of angels will usher in the day of the advent of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their departure, following their final mission, will inaugurate this superb era of light and life.

52:7.15 (600.4) All the worlds of Satania can join in the hope of the one who wrote: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s righteousness. Wherefore, beloved, seeing that you look for such things, be diligent that you may be found by Him in peace, without spot and blameless.”

52:7.16 (600.5) The departure of the Teacher Son corps, at the end of their first or some subsequent reign, ushers in the daw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 the threshold of the transition from time to the vestibule of eternity. The planetary realization of this era of light and life far more than equals the fondest expectations of Urantia mortals who have entertained no more farseeing concepts of the future life than those embraced within religious beliefs which depict heaven as the immediate destiny and final dwelling place of surviving mortals.

52:7.17 (600.6)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taff of Gabriel.]

제53편. 루시퍼 반역

⇨ 052

유란시아 책

054 ⇨

II 부. 지방우주

제53편
루시퍼 반역

섹션

소개

1. 반역의 주동자
2. 반역의 원인
3. 루시퍼 성명서
4. 반역의 발발
5. 갈등의 본질
6. 충성스런 스랍 사령관
7. 반역의 역사
8. 유란시아에 온 사람의 아들
9. 반역의 현재 상태

소개

루시퍼는 **네바돈**에서 빛나는 1차 **라노난덱 아들**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체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높은 조언자였으며, 지혜와 총명함과 능률면에서 뛰어났다. **루시퍼**는 그의 계층에서 37_번이었고, **멜기세덱**들이 그를 임명했을 때, 70만 명이 넘는 그의 부류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총명한 100명 가운데 하나로서 지명됐다. 그의 출발은 그렇게 훌륭했으나, 악과 실책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됐고, 지금은 **네바돈**에서 자신의 충동에 굴복하고--곧 우주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형제관계의 책무를 무시하며, 시공우주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개인 자유라는 궤변에 항복한, 세 명의 **체계 주권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영역인 **네바돈** 우주에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10,000개의 체계가 있다. **라노난덱 아들**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즉 이 수 천 개의 체계와 우주 본부 전역에 걸친 그들의 전체 업무에서, 지금까지 오직 세 명의 **체계 주권**

PAPER 53

THE LUCIFER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Leaders of Rebellion
2. The Causes of Rebellion
3. The Lucifer Manifesto
4. Outbreak of the Rebellion
5. Nature of the Conflict
6. A Loyal Seraphic Commander
7. History of the Rebellion
8. The Son of Man on Urantia
9. Present Status of the Rebellion

INTRODUCTION

53:0.1 (601.1) LUCIFER was a brilliant primary Lanonandek Son of Nebadon. He had experienced service in many systems, had been a high counselor of his group, and was distinguished for wisdom, sagacity, and efficiency. Lucifer was number 37 of his order, and when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he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one hundred most able and brilliant personalities in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 of his kind. From such a magnificent beginning, through evil and error, he embraced sin and now is numbered as one of three System Sovereigns in Nebadon who have succumbed to the urge of self and surrendered to the sophistry of spurious personal liberty — rejection of universe allegiance and disregard of fraternal obligations, blindness to cosmic relationships.

53:0.2 (601.2)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domain of Christ Michael, there are ten thousan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In all the history of Lanonandek Sons, in all their work throughout these thousands of systems and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only three System Sovereigns have

자만이 **창조주 아들**의 정부를 경멸한 것으로 발견됐다.

ever been found in contempt of the government of the Creator Son.

1. 반역의 주동자

루시퍼는 상승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지방 우주에서 창조된 **아들**이었고, 그에 관해: “너는 창조된 후에, 네 속에서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네 모든 방침에서 완전했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여러 차례 상담했다. 그리고 **루시퍼**는 **예루셈**의 경영 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군림했는데, 607개의 인간거주 세계로 구성된 커다란 한 체계의 최고 행정관이었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당당한 존재, 찬란한 인격체였으며; 우주의 직계 권력 계통에서 성좌의 **지고자 아버지**들 다음 위치에 있었다. **루시퍼**가 죄를 범했음에도,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전에는, 부하 지성체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려하지 않았다. **모세**가 부활했을 때, 심지어 **미가엘**의 천사장도 “그에게 대항하여 비난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재판관**이 너를 꾸짖는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런 문제의 판결은 연방 우주 통치자인 **태고 항존자**들에게 속한다.

루시퍼는 이제 타락하고 폐위된 **사타니아 주권자**다. 자아_성찰은, 심지어 하늘 세계의 고양된 인격체들에게도 가장 불길하다. **루시퍼**에 대해: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고; 네 총명함이 네 지혜를 타락시켰다”는 평판이 있었다. 너희의 옛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신분을 보고: “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여,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세계들을 감히 혼란에 빠뜨리려던 네가 어찌하여 쫓겨났는가!”라고 기록했다.

유란시아에는 **루시퍼**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주장에 대해 너희 행성에서 변호하도록, 자신의 첫째 부관인 **사탄**을 배정한 사실 때문이다. **사탄**은, 동일한 1차 **라노난덱**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체계 주권자**로서 역할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루시퍼** 반란에 완전히 가담했다. “파귀”는 바로 **캘리개스차**, 즉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에서 폐위된, 2차 **라노난덱** 계층의 한 **아들**에 불과하다.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을 때, **루시퍼**, **사탄**, 및 **캘리개스차**는, **미가엘**의 증여 사명이 실패하도록 피하기 위해 연합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실패했다.

아바돈은 **캘리개스차** 참모진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주인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 반역자들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활동했다. **바알세불**은, 불충한 **캘리개스차**의 군대와 스스로 연합했던 불성실한 중도 피조물들의 두목이었다.

용{龍}이 결국에는 이 악한 인물들 전체를 대

1. THE LEADERS OF REBELLION

53:1.1 (601.3) Lucifer was not an ascendant being; he was a created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of him it was said: “You were perfect in all your ways from the day you were created till unrighteousness was found in you.” Many times had he been in counsel with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Lucifer reigned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e administrative mount of Jerusem, for he was the chief executive of a great system of 607 inhabited worlds.

53:1.2 (601.4) Lucifer was a magnificent being, a brilliant personality; he stood next to the Most High Fathers of the constellations in the direct line of universe authority. Notwithstanding Lucifer’s transgression, subordinate intelligences refrained from showing him disrespect and disdain prior to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Even the archangel of Michael, at the time of Moses’ resurrection, “did not bring against him an accusing judgment but simply said, ‘the Judge rebuke you.’” Judgment in such matters belongs to the Ancients of Days, the rulers of the superuniverse.

53:1.3 (601.5) Lucifer is now the fallen and deposed Sovereign of Satania. Self-contemplation is most disastrous, even to the exalted personalities of the celestial world. Of Lucifer it was said: “Your heart was lifted up because of your beauty; you corrupted your wisdom because of your brightness.” Your olden prophet saw his sad estate when he wrote: “How are y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e you cast down, you who dared to confuse the worlds!”

53:1.4 (602.1) Very little was heard of Lucifer on Urantia owing to the fact that he assigned his first lieutenant, Satan, to advocate his cause on your planet. Satan was a member of the same primary group of Lanonandeks but had never functioned as a System Sovereign; he entered fully into the Lucifer insurrection. The “devil” is none other than Caligastia, the deposed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a Son of the secondary order of Lanonandeks. At the time Michael was on Urantia in the flesh,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were leagued together to effect the miscarriage of his bestowal mission. But they signally failed.

53:1.5 (602.2) Abaddon was the chief of the staff of Caligastia. He followed his master into rebellion and has ever since acted as chief executive of the Urantia rebels. Beelzebub was the leader of the disloyal midway creatures who allied themselves with the forces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53:1.6 (602.3) The dragon eventually became the

변하는 상정이 됐다. **미가엘**이 승리하자, “**가브리엘**이 **살빙톤**으로부터 내려와서 용을(반역한 모든 지도자들) 한 시대 동안 결박했다.” **예루셈**의 반역한 스라빔에 대해 서 이렇게 기록됐다: “그리고 자신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떠난 천사들을, 그가 큰 날에 심판할 때까지, 흑암의 든든한 쇠사슬로 묶어 놔다.”

2. 반역의 원인

루시퍼와, 그의 첫째 보좌관인 **사탄**은, **만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의 대리 권한을 가진 **아들**인 **미가엘**에게 대항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50만 년 이상 **예루셈**을 통치해 왔었다.

사타니아 체계에는, 반역을 조장하거나 불러일으킬만한 독특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 생각이 **루시퍼**의 정신에서 기원되고 형성됐으며, 그가 어디 있었든지 그런 반역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루시퍼**가 자기 계획을 **사탄**에게 처음 알렸지만, 그의 유능하고 총명한 동역자의 정신을 타락시키기까지는 여러 달 소요됐다. 아무튼, 반역 이론에 일단 넘어가자, 그는 “자주적(自主的)_주장 및 자유”에 대한 과감하고 열렬한 옹호자가 됐다.

아무도 **루시퍼**에게 반역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 **미가엘**의 뜻, 그리고 **미가엘**이 대표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주적_주장이라는 관념은, 그의 고유 정신에서 발단됐다. 그는 **창조주 아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항상 충성스러웠다. **루시퍼**가 자신의 정신을 찬양하기 전에는, 우주 경영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가 침묵했음에도, 표준시간으로 100년이 넘도록, **살빙톤**에 있는 **합동 항존자**는 **루시퍼**의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버사**에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이 정보는 **창조주 아들** 및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에게도 통보됐다.

루시퍼는 이 기간 내내, 우주 경영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점점 더 비판하게 됐지만, **최상급 통치자들**에게는 항상 전심으로 충성한다고 고백했다. 노골적인 그의 첫 불충성은, **루시퍼 자유 선언**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에, **가브리엘**이 **예루셈**을 방문했을 때 표면화됐다. **가브리엘**은 봉기가 임박했다는 확신으로 몹시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으므로, 공개적인 반역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좌 아버지**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곧바로 **에덴시아**로 갔다.

루시퍼의 반역에서 최종적으로 극에 달했던 정확한 원인 또는 원인들을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확신하는 오직 한 가지는: 첫 시작이 무

symbolic representation of all these evil personages. Upon the triumph of Michael, “Gabriel came down from Salvington and bound the dragon (all the rebel leaders) for an age.” Of the Jerusalem seraphic rebels it is written: “And the angels who kept not their first estate but left their own habitation, he has reserved in sure chains of darkness to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2. THE CAUSES OF REBELLION

53:2.1 (602.4) Lucifer and his first assistant, Satan, had reigned on Jerusem for more than five hundred thousand years when in their hearts they began to array themselves agains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then vicegerent Son, Michael.

53:2.2 (602.5) There were no peculiar or special conditions in the system of Satania which suggested or favored rebellion. It is our belief that the idea took origin and form in Lucifer's mind, and that he might have instigated such a rebellion no matter where he might have been stationed. Lucifer first announced his plans to Satan, but it required several months to corrupt the mind of his able and brilliant associate. However, when once converted to the rebel theories, he became a bold and earnest advocate of “self-assertion and liberty.”

53:2.3 (602.6) No one ever suggested rebellion to Lucifer. The idea of self-assertion in opposition to the will of Michael and to the plans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y are represented in Michael, had its origin in his own mind. His relations with the Creator Son had been intimate and always cordial. At no time prior to the exaltation of his own mind did Lucifer openly express dissatisfaction about the universe administration. Notwithstanding his silenc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standard time the Union of Days on Salvington had been reflectivating to Uversa that all was not at peace in Lucifer's mind. This information was also communicated to the Creator Son and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Norlatiadek.

53:2.4 (602.7) Throughout this period Lucifer became increasingly critical of the entire plan of universe administration but always professed wholehearted loyalty to the Supreme Rulers. His first outspoken disloyalty was manifested on the occasion of a visit of Gabriel to Jerusem just a few days before the open proclamation of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Gabriel was so profoundly impressed with the certainty of the impending outbreak that he went direct to Edentia to confer with the Constellation Fathers regarding the measures to be employed in case of open rebellion.

53:2.5 (603.1) It is very difficult to point out the exact cause or cause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Lucifer rebellion. We are certain of only one thing,

엇이었던지, 그것은 **루시퍼**의 정신에서 기원했다는 점이다. 자기를_기만하는 지점까지 스스로 조성한 자아의 오만함이 분명히 있었으며, 그리하여 **루시퍼**는 반역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우주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체계에는 실제로 선한 것이라고 한동안 진정으로 자신을 설득했다. 그의 계획이 환멸감에 이를 정도로 발전되기까지, 그의 원래 이간질하는 자존심이 너무 멀리 가버려서, 그를 중지시킬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이런 체험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신실하지 못하게 됐고, 고의적이고 의지적인 죄 속으로 악이 개입됐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총명한 행정관이 차후에 취한 행동으로 증명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오랫동안 주어졌지만, 그의 부하 가운데 일부만이, 제안된 자비를 받아들였다. **성좌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악명 높은 반역자들을 구하기 위한 **미가엘**의 계획을 **에덴시아**의 **총실 향존자**가 직접 제시했지만, **창조주 아들**의 자비는 항상 거부됐고, 갈수록 더 경멸과 모욕을 받으면서 거절당했다.

3. 루시퍼 성명서

루시퍼와 **사탄**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의 초기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최종적인 봉기는 **루시퍼 자유 선언**으로 나타났다. 반역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목으로 발표됐다:

1. **만유의 아버지**의 실체. **루시퍼**는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물리적 인력과 공간_에너지가 우주에 내재한다고, 그리고 **낙원 아들**들이 우주들에 대한 통치를 **아버지** 이름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신화{神話}로서 **아버지**를 지어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격이 **만유의 아버지**의 선물임을 부인했다. 그는, **낙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실제 인격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완결성취자들조차 상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창조계에 몰래 사기{詐欺}를 치려고 **낙원 아들**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넌지시 비추기까지 했다. 그는 공경을 무지의 소치라고 매도했다. 그 비난은 포괄적이었고, 무시무시했으며, 모욕적이었다. 당시에 **예루셈**에 있던 상승한 시민들이, 반역자의 모든 제안에 대항해서, 견고하게 서고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완결성취자들에 대한 이 은근한 공격이었다.

2. **창조주 아들_미가엘**의 우주 정부. **루시퍼**는 지역 체계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가엘**, 즉 **창조주 아들**이, 가상{假想}의 **낙원 아버지** 이름으로 **네바돈**의 주권을 사칭하고, 보이지도 않는 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모든 인격체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의했다. 경배 계획 전체가 **낙원 아들**들을 강화시키려는 교묘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가엘**을 자신의 **창조주_아버지**로 인정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 및 합법적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and that is: Whatever these first beginnings were, they had their origin in Lucifer's mind. There must have been a pride of self that nourished itself to the point of self-deception, so that Lucifer for a time really persuaded himself that his contemplation of rebellion was actually for the good of the system, if not of the universe. By the time his plans had developed to the point of disillusionment, no doubt he had gone too far for his original and mischief-making pride to permit him to stop. At some point in this experience he became insincere, and evil evolved into deliberate and willful sin. That this happened is proved by the subsequent conduct of this brilliant executive. He was long offered opportunity for repentance, but only some of his subordinates ever accepted the proffered mercy. The Faithful of Days of Edentia, on the request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person presented the plan of Michael for the saving of these flagrant rebels, but always was the mercy of the Creator Son rejected and rejected with increasing contempt and disdain.

3. THE LUCIFER MANIFESTO

53:3.1 (603.2) Whatever the early origins of trouble in the hearts of Lucifer and Satan, the final outbreak took form as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The cause of the rebels was stated under three heads:

53:3.2 (603.3) 1.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Lucifer charged that the Universal Father did not really exist, that physical gravity and space-energy were inherent in the universe, and that the Father was a myth invented by the Paradise Sons to enable them to maintain the rule of the universes in the Father's name. He denied that personality was a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He even intimated that the finaliters were in collusion with the Paradise Sons to foist fraud upon all creation since they never brought back a very clear-cut idea of the Father's actual personality as it is discernible on Paradise. He traded on reverence as ignorance. The charge was sweeping, terrible, and blasphemous. It was this veiled attack upon the finaliters that no doubt influenced the ascendant citizens then on Jerusalem to stand firm and remain steadfast in resistance to all the rebel's proposals.

53:3.3 (603.4) 2. *The universe government of the Creator Son — Michael.* Lucifer contended that the local systems should be autonomous. He protested against the right of Michael, the Creator Son, to assume sovereignty of Nebadon in the name of a hypothetical Paradise Father and require all personalities to acknowledge allegiance to this unseen Father. He asserted that the whole plan of worship was a clever scheme to aggrandize the Paradise Sons. He was willing to

그는 **태고 항존자들**--곧 “외부 주권자들”--이 지역 체계와 우주 직무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혹독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 통치자들을 폭군과 침입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람과 천사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담대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할 만큼 용기를 갖기만 한다면, 완벽한 내정{內政} 자치 운영에 이 통치자들 가운데 누구도 전혀 개입할 수 없음을 믿게 하려고 추종자들을 강권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기만 하면, **태고 항존자들**의 집행자들이 지역 체계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멸성이 체계 인격체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고, 부활은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며, **태고 항존자들**의 집행자들이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3. **상승하는 필사자를 훈련하는 보편적 계획에 대한 공격.** **루시퍼**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우주 경영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는 짜임새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근거로 인용하는 원칙들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운명을 위해서 공간의 필사자를 준비시키는 오랜 기간의 계획표에 대해 반대했고, 완결성취자 단체가 **예루셈**에 현존하는 것은, 이 필사자들이 순전히 허구적인 운명을 준비하려고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원했던 구체와 비슷한 비천한 구체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영화롭지 못한 운명에 완결성취자들이 이미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웃었다. 완결성취자들이 과도한 훈육과 장기간의 훈련으로 이미 타락했다고 공표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필사자가 신화{神話} 같은 영원한 운명을 가졌다는 허구성에 모든 창조물이 노예가 되도록 하는 책략에 지금 협동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완결성취자들이 동료 필사자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표했다. 상승자들이 개인의 자결권이라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후원하고 **무한한 영**이 지지하는, 필사자 상승 계획 전체에 도전하고 이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런 **자유 선언**과 함께, **루시퍼**는 자신을 흑암과 죽음으로 이끄는 방탕한 축제의 막을 열었다.

4. 반역의 발발

루시퍼 성명서는, 유리바다에서 이뤄지는 **사타니아** 연례 비밀회의{秘密會議}에서 발표됐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만 년 전, 그 해 마지막 날에, 소집된 **예루셈** 무리 앞에서였다. 경배는--물리적, 지적, 및 영적-- 우주 세력들에게 드릴 수 있

acknowledge Michael as his Creator-father but not as his God and rightful ruler.

53:3.4 (603.5) Most bitterly did he attack the right of the Ancients of Days — “foreign potentates” — to interfere in the affairs of the local systems and universes. These rulers he denounced as tyrants and usurpers.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believe that none of these rulers could do aught to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complete home rule if men and angels only had the courage to assert themselves and boldly claim their rights.

53:3.5 (603.6) He contended that the executioners of the Ancients of Days could be debarred from functioning in the local systems if the native beings would only assert their independence. He maintained that immortality was inherent in the system personalities, that resurrection was natural and automatic, and that all beings would live eternally except for the arbitrary and unjust acts of the executioners of the Ancients of Days.

53:3.6 (604.1) 3. *The attack upon the universal plan of ascendant mortal training.* Lucifer maintained that far too much time and energy were expended upon the scheme of so thoroughly training ascending mortals in the principl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principles which he alleged were unethical and unsound. He protested against the agelong program for preparing the mortals of space for some unknown destiny and pointed to the presence of the finaliter corps on Jerusalem as proof that these mortals had spent ages of preparation for some destiny of pure fiction. With derision he pointed out that the finaliters had encountered a destiny no more glorious than to be returned to humble spheres similar to those of their origin. He intimated that they had been debauched by overmuch discipline and prolonged training, and that they were in reality traitors to their mortal fellows since they were now co-operating with the scheme of enslaving all creation to the fictions of a mythical eternal destiny for ascending mortals. He advocated that ascenders should enjoy the liberty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He challenged and condemned the entire plan of mortal ascension as sponsored by the Paradise Sons of God and supported by the Infinite Spirit.

53:3.7 (604.2) And it was with such a Declaration of Liberty that Lucifer launched his orgy of darkness and death.

4. OUTBREAK OF THE REBELLION

53:4.1 (604.3) The Lucifer manifesto was issued at the annual conclave of Satania on the sea of glass, in the presence of the assembled hosts of Jerusalem, on the last day of the year, about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Urantia time. Satan proclaimed that worship could be accorded the

지만, 충성맹세는 오직 현재의 실제 통치자, 즉 “사람과 천사들의 친구”이자 “자유와 **하나님**”인 **루시퍼**에게 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탄**이 선언했다.

자주적 주장이 **루시퍼** 반역의 표어였다. 그의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는, 자체 정부가 **멜기세덱** 및 다른 집단들에게 좋고 올바르다면, 그것은 모든 계층의 지성체에게도 똑같이 좋다는 것이었다. “정신은 동등”하고, “지성체는 형제관계”라고, 그는 단호하고 완고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지역 행성들로 제한돼야 하고, 그 행성들의 자발적 연합이 지역 체계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어떤 감독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행성 왕자**들에게, 그들이 최고 행정관으로서 그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입법 활동이 성좌 본부에서, 그리고 사법적 직무의 수행이 우주 수도에서 이뤄지는 것을 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정부 기능이 체계 본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입법 집회를 수립하기에 착수했고, **사탄**의 관할 아래 자신의 법정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는 변절한 세계의 왕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

루시퍼의 경영 내각 전체가 한 덩어리로 넘어갔고, “해방된 세계와 체계들”의 새 우두머리의 행정부 관료(官僚)로서, 공식 선서를 함으로써 임명됐다.

네바돈에서 두 번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먼 성좌들에서 발생했다. 이 폭동들의 실패는 그 지성체 대부분이 자기 지도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루시퍼**는 주장했다. “과반수가 판결한다”고, 즉 “정신은 오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주 통치자들이 그에게 허용한 그 자유가, 사악한 그의 주장 가운데 다수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그는 상관들을 모두 무시했지만; 상관들은 그의 행위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런 방해 없이, 유혹하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루시퍼는, 처벌이 자비롭게 연기(延期)된 것은 모두, **낙원 아들**들의 정부가 반역을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가엘**, **임마누엘**, 및 **태고 항존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오만하게 도전했으며, 그리고 나서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주와 연방우주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하곤 했다.

가브리엘은 불충한 이 모든 회의과정 내내 직접 참석해서 지켜봤고, 다만 때가 되면 자신이 **미가엘**을 대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존재는 자유롭게 방해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들**들의 정부는 오직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궤변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원한다”고 공표했다.

universal forces —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 but that allegiance could be acknowledged only to the actual and present ruler, Lucifer, the “friend of men and angels” and the “God of liberty.”

53:4.2 (604.4) Self-assertion was the battle cry of the Lucifer rebellion. One of his chief arguments was that, if self-government was good and right for the Melchizedeks and other groups, it was equally good for all orders of intelligence. He was bold and persistent in the advocacy of the “equality of mind” and “the brotherhood of intelligence.” He maintained that all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local planets and their voluntary confederation into the local systems. All other supervision he disallowed. He promised the Planetary Princes that they should rule the worlds as supreme executives. He denounced the loc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the conduct of judicial affairs on the universe capital. He contended that all these functions of government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system capitals and proceeded to set up his own legislative assembly and organized his own tribun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Satan. And he directed that the princes on the apostate worlds do the same.

53:4.3 (604.5) The entire administrative cabinet of Lucifer went over in a body and were sworn in publicly as the officer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 head of “the liberated worlds and systems.”

53:4.4 (605.1) While there had been two previous rebellions in Nebadon, they were in distant constellations. Lucifer held that these insurrections were unsuccessful because the majority of the intelligences failed to follow their leaders. He contended that “majorities rule,” that “mind is infallible.” The freedom allowed him by the universe rulers apparently sustained many of his nefarious contentions. He defied all his superiors; yet they apparently took no note of his doings. He was given a free hand to prosecute his seductive plan without let or hindrance.

53:4.5 (605.2) All the merciful delays of justice Lucifer pointed to as evidence of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Paradise Sons to stop the rebellion. He would openly defy and arrogantly challenge Michael, Immanuel, and the Ancients of Days and then point to the fact that no action ensued as positive evidence of the impotency of the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53:4.6 (605.3) Gabriel was personally present throughout all these disloyal proceedings and only announced that he would, in due time, speak for Michael, and that all beings would be left free and unmolested in their choice; that the “government of the Sons for the Father desired only that loyalty and devotion which was voluntary, wholehearted, and sophistry-proof.”

탈퇴할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역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이 어떤 노력이든지 기울이기 전에, **루시퍼**는 자신의 반역 정부를 완전히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허용됐다. 그러나 **성좌 아버지**들이 이 불충한 인격체들의 행위를 즉시 **사타니아** 체계로 제한시켰다. 그럼에도 연기된 이 기간은, **사타니아** 전체의 충성스런 존재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시험의 시간이었다. 여러 해 동안 전체가 무질서했고, 맨션 세계들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다.

5. 갈등의 본질

사타니아 반역이 발발하자, **미가엘**은 자신의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과 상담했다. 이 중대한 협의가 있는 다음에, **미가엘**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격변에 대해서 자신이 처리했던 방법의 특징이었던 똑같은 정책, 즉 불간섭의 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반역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두 반역이 있었을 때, **네바돈** 우주에는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자주적 권세가 없었다. **미가엘**은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신성한 권한으로 통치했지만, 아직 자신의 개인 권한은 갖지 못했다. 그는 증여 생애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

반역이 일어난 때부터 **네바돈**의 주권적 통치자로 즉위되는 때까지, **미가엘**은 **루시퍼** 반역 무리와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동안 멋대로 진행하도록 허용됐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제 그런 불충성이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심지어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만일 그런 격변이 다시 발생한다 해도, 이 주권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다르게 행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가엘이 **루시퍼** 반역의 실제 투쟁에서 초연 {超然}해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자신의 개인 참모진을 **에덴시아**에 소집하고, **지고 자**들과 상담한 후에, **사타니아**의 충성스런 무리들에 대한 지휘권을 떠맡기로 작정했다. **미가엘**은 **살빙톤**에 머물렀고, 한편 **가브리엘**은 **에루셈**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 곧 **루시퍼**와 **사탄**이 의심했던 바로 그 **만유의 아버지**께 -- 바쳐진 구체에 자리잡았으며, 그는 모여든 충성스런 인격체들 무리 앞에 **미가엘**의 깃발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흰색 바탕에 세 개의 하늘색 동심원 {同心圓}이 있는, 전체 창조물의 **삼위일체** 정부의 물질적 상징이었다.

루시퍼의 상징은 한 개의 빨간색 원이 있는 흰색 깃발이었는데, 그 중앙에는 검정색으로 가득 채워진 원이 나타나 있었다.

53:4.7 (605.4) Lucifer was permitted fully to establish and thoroughly to organize his rebel government before Gabriel made any effort to contest the right of secession or to counterwork the rebel propaganda. But the Constellation Fathers immediately confined the action of these disloyal personalities to the system of Satania. Nevertheless, this period of delay was a time of great trial and testing to the loyal beings of all Satania. All was chaotic for a few years, and there was great confusion on the mansion worlds.

5. NATURE OF THE CONFLICT

53:5.1 (605.5) Upon the outbreak of the Satania rebellion, Michael took counsel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Following this momentous conference, Michael announced that he would pursue the same policy which had characterized his dealings with similar upheavals in the past, an attitude of noninterference.

53:5.2 (605.6) At the time of this rebellion and the two which preceded it there was no absolute and personal sovereign authority in the universe of Nebadon. Michael ruled by divine right, as vicegerent of the Universal Father, but not yet in his own personal right. He had not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he had not yet been vested with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53:5.3 (605.7) From the outbreak of rebellion to the day of his enthronement as sovereign ruler of Nebadon, Michael never interfered with the rebel forces of Lucifer; they were allowed to run a free course for almost two hundred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Christ Michael now has ample power and authority to deal promptly, even summarily, with such outbreaks of disloyalty, but we doubt that this sovereign authority would lead him to act differently if another such upheaval should occur.

53:5.4 (605.8) Since Michael elected to remain aloof from the actual warfare of the Lucifer rebellion, Gabriel called his personal staff together on Edentia and, in counsel with the Most Highs, elected to assume command of the loyal hosts of Satania. Michael remained on Salvington while Gabriel proceeded to Jerusem, and establishing himself on the sphere dedicated to the Father — the same Universal Father whose personality Lucifer and Satan had questioned — in the presence of the forgathered hosts of loyal personalities, he displayed the banner of Michael, the material emblem of the Trinity government of all creation, the three azure blue concentric circles on a white background.

53:5.5 (606.1) The Lucifer emblem was a banner of white with one red circle, in the center of which a black solid circle appeared.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미가엘**의 지휘관과 그의 천사들이 용에 대항해서(**루시퍼**, **사탄**, 및 배반한 왕자들에 대항해서) 싸웠으며;용과 그의 반역하는 천사들이 맞섰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유란시아**에서 혼동이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다. 투쟁하던 초기에, **루시퍼**는 행성의 원형극장에서 계속 떠돌아다녔다. **가브리엘**은 바로 가까이 자리잡은 그의 본부에서 반역의 궤변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일을 했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 토론들 사이에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에 사로잡혔던 다양한 인격체가 그 구체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아주 심각했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미성숙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 같은 그런 특질의 야만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투쟁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으며;물질적 전투에서는 물질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만, 하늘에서의 전쟁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싸움이였다.

6. 충성스런 스랍 사령관

싸움이 발발한 때부터 새로운 체계 통치자 및 그의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 한 동안, 허다한 인격체들이 이행한 행동, 즉 고귀하고 영감을 주는 헌신과 충성스런 행동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담한 헌신적 위업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사타니아** 본부의 스라빔 부 지휘관인 **마노티아**의 용맹스런 행동이었다.

예루셈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스랍 무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의 주장에 가담했다. 이것은 넷째 계층, 즉 체계 경영자 스라빔 중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숫자가 타락하게 됐는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설명한다. 스랍 지도자는 **루시퍼**의 총명한 인격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며;그의 매력 있는 방식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낮은 계층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다만, 그렇게 눈부신 인격체에게도, 잘못을 저지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노티아**는 **루시퍼** 반역의 징후와 관련된 체험을 설명하면서 말했다:“그러나 내가 가장 상쾌했던 순간은, **루시퍼** 반역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모험이었는데, 그때 스랍 부사령관으로서, 나는 **미가엘**을 모욕하려는 계획에 가담하기를 거부했으며;막강한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연합 세력의 수단을 이용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애썼다. **예루셈**에서 무시무시한 격변이 일어났지만, 충성스런 스라빔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내 직속상관이 태만함에 따라, 나는 혼란에 빠진 체계의 스랍 직무에 대한 명목상 지휘관으로서, **예루셈**의 천사 무리에 대한 지휘권을 떠맡게

53:5.6 (606.2)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s commander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Lucifer, Satan, and the apostate princes); and the dragon and his rebellious angels fought but prevailed not.” This “war in heaven” was not a physical battle as such a conflict might be conceived on Urantia. In the early days of the struggle Lucifer held forth continuously in the planetary amphitheater. Gabriel conducted an unceasing exposure of the rebel sophistries from his headquarters taken up near at hand. The various personalities present on the sphere who were in doubt as to their attitude would journey back and forth between these discussions until they arrived at a final decision.

53:5.7 (606.3) But this war in heaven was very terrible and very real. While displaying none of the barbarities so characteristic of physical warfare on the immature worlds, this conflict was far more deadly; material life is in jeopardy in material combat, but the war in heaven was fought in terms of life eternal.

6. A LOYAL SERAPHIC COMMANDER

53:6.1 (606.4) There were many noble and inspiring acts of devotion and loyalty which were performed by numerous personalities during the interim between the outbreak of hostilities and the arrival of the new system ruler and his staff. But the most thrilling of all these daring feats of devotion was the courageous conduct of Manotia, the second in command of the Satania headquarters' seraphim.

53:6.2 (606.5) At the outbreak of rebellion on Jerusem the head of the seraphic hosts joined the Lucifer cause. This no doubt explains why such a large number of the fourth order, the system administrator seraphim, went astray. The seraphic leader was spiritually blinded by the brilliant personality of Lucifer; his charming ways fascinated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y simply could not comprehend that it was possible for such a dazzling personality to go wrong.

53:6.3 (606.6) Not long since, in describing th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the Lucifer rebellion, Manotia said: “But my most exhilarating moment was the thrilling adventure connected with the Lucifer rebellion when, as second seraphic commander, I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ed insult to Michael; and the powerful rebels sought my destruction by means of the liaison forces they had arranged. There was a tremendous upheaval on Jerusem, but not a single loyal seraphim was harmed.

53:6.4 (606.7) “Upon the default of my immediate superior it devolved upon me to assume command of the angelic hosts of Jerusem as the

됐다. **멜기세덱**들이 나를 실질적으로 지지했고, 대다수 **물질 아들**들의 훌륭한 도움을 받았으며, 내가 소속된 계층 중에서 수많은 집단이 나를 버렸지만,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지했다.

“**루시퍼**의 탈퇴로 인해 성좌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보 단체의 충성에 의존했는데, 그들은 근처에 있는 **란투리아** 체계로부터 **에덴시아**로 원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질서 있는 나라, 충성스런 지성, 및 **진리의 영**은, 반역, 자주적 주장, 그리고 소위 개인적 자유를 물리치고 천천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으며;**루시퍼**를 대신할 덕망 있는 후계자로서 새로운 **체계 주권자**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나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신분을 가진 단체에 배정됐고, 배반한 **캘리개스차**의 세계에서 충성스런 스랍 계층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으며, **캘리개스차**는 **루시퍼**가 발표한 악명 높은 **자유 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의 구체가 ‘해방된 세계와 자유롭게 된 인격체들’의 체계라는 새롭게 입안된 체계의 구성원임을 공포했으며, 이것은 ‘잘못 통치되고 잘못 경영된 **사타니아** 세계들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는 지성체들을 부르려고 발표한 선언이었다.”

이 천사는 **유란시아**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데, 스라빔의 부 지휘관으로서 활동한다.

7. 반역의 역사

루시퍼 반역은 체계에 널리 퍼졌다. 탈퇴한 37명의 **행성 왕자**는, 자신의 세계 행정부 대부분이 최고반역자 편으로 가도록 했다. 오직 **파놉티아**에서만 **행성 왕자**가 자기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는 데 실패했다. 이 세계의 경우에, 사람들은 **멜기세덱**들의 안내에 따라서, **미가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 필사자 영역의 한 젊은 여자인 **엘라노라**가 인간 종족들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투쟁으로 찢겨진 그 세계에서 어느 한 영혼도 **루시퍼** 깃발 아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충성스런 **파놉티아인**은 그후로 계속, 일곱째 **예루셈**과도기 세계에서 보호자로서 이바지했고, **아버지**의 구체 및 그 둘레에 있는, 일시적으로 붙들어두는 일곱 세계에서 건축자로서 근무했다. **파놉티아인**은 이 세계들의 엄밀한 관리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어떤 미지의 활용을 위해서 이 구체들을 꾸미려고 **미가엘**이 친히 내린 지시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머무는 동안 이 작업을 한다.

이 기간 내내, **캘리개스차**는 **유란시아**에서 **루시퍼**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멜기세덱**들은 변절한 **행성 왕자**에게 훌륭히 맞섰지만, 제한 없는 자유를 부르짖는 궤변과 자주적 주장이라는 망상은, 미숙하고 발달되지 않은 세계의 원시적

titular director of the confused seraphic affairs of the system. I was morally upheld by the Melchizedeks, ably assisted by a majority of the Material Sons, deserted by a tremendous group of my own order, but magnificently supported by the ascendant mortals on Jerusem.

53:6.5 (606.8) “Having been automatically thrown out of the constellation circuits by the secession of Lucifer, we were dependent on the loyalty of our intelligence corps, who forwarded calls for help to Edentia from the near-by system of Rantulia; and we found that the kingdom of order, the intellect of loyalty, and the spirit of truth were inherently triumphant over rebellion, self-assertion, and so-called personal liberty; we were able to carry on until the arrival of the new System Sovereign, the worthy successor of Lucifer. And immediately thereafter I was assigned to the corps of the Melchizedek receivership of Urantia, assuming jurisdiction over the loyal seraphic orders on the world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who had proclaimed his sphere a member of the newly projected system of ‘liberated worlds and emancipated personalities’ proposed in the infamous Declaration of Liberty issued by Lucifer in his call to the ‘liberty-loving, free-thinking, and forward-looking intelligences of the misruled and maladministered worlds of Satania.’”

53:6.6 (607.1) This angel is still in service on Urantia, functioning as associate chief of seraphim.

7. HISTORY OF THE REBELLION

53:7.1 (607.2) The Lucifer rebellion was system wide. Thirty-seven seceding Planetary Princes swung their world administrations largely to the side of the archrebel. Only on Panoptia did the Planetary Prince fail to carry his people with him. On this world, under the guidance of the Melchizedeks, the people rallied to the support of Michael. Ellanora, a young woman of that mortal realm, grasped the leadership of the human races, and not a single soul on that strife-torn world enlisted under the Lucifer banner. And ever since have these loyal Panoptians served on the seventh Jerusem transition world as the caretakers and builders on the Father's sphere and its surrounding seven detention worlds. The Panoptians not only act as the literal custodians of these worlds, but they also execute the personal orders of Michael for the embellishment of these spheres for some future and unknown use. They do this work as they tarry en route to Edentia.

53:7.2 (607.3) Throughout this period Caligastia was advocating the cause of Lucifer on Urantia. The Melchizedeks ably opposed the apostate Planetary Prince, but the sophistries of unbridled liberty and the delusions of self-assertion had

민족들을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모든 탈퇴 선전활동은 개인의 노력으로 수행해야만 했는데, 방송 서비스와 모든 다른 행성 간 소통 수단이, 체계 회로 감독관들의 작용으로 인해 중지됐기 때문이다. 반란이 실제로 발발하자, **사타니아** 체계 전체는 성좌 회로와 우주 회로에서 모두 격리됐다. 스랍 대행자와 **단독 사자들**이, 이 시기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처리했다. 타락한 세계에 이르는 회로들 역시 차단됐고, 그리하여 **루시퍼**는 자신의 사악한 책략을 확장시키기에 이 수단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회로들은, 최고의 반역자들이 **사타니아**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라노난덱** 반역이었다. 지방우주의 아들신분 중에서 높은 계층들은 **루시퍼** 탈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반역한 행성에 머물렀던 **생명 운반자** 가운데 일부가 불충한 왕자들의 반역에 어느 정도 영향 받았다.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 중에서는 아무도 타락하지 않았다. **멜기세덱**, 천사장, 및 **찬란한 저녁별**들은 모두 **미가엘**에게 충성했으며, **아버지** 뜻과 **아들**의 통치를 위해서 **가브리엘**과 함께 용감하게 투쟁했다.

낙원에서 기원된 존재들은 아무도 불충성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독 사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 본부를 차렸으며, **에덴시아**의 **총실 항존자**의 지도력 아래 남아있었다. 화해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천상의 기록원**들 가운데서도 한 명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론시아 동무**와 **맨션 세계 교사**들 중에서는 큰 희생이 있었다.

최상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는 한 명의 천사도 잃지 않았지만, 그 다음 상급자들 계층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단이 기만당하고 함정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셋째 계층, 즉 감독 계층 중에서 일부 천사가 현혹됐다. 그러나 격렬한 붕괴가, 넷째 집단, 즉 경영자 천사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은 대개 체계 수도의 임무에 배정되는 스라빔이다. **마노티아**가 그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구했지만,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숫자는 자신의 두목을 따라서 반역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영 천사들에게 배속된 전체 **예루셈** 체루빔 중에서 3분의 1이 불충한 스라빔과 함께 유실됐다.

행성의 천사 도우미들 중에서 **물질 아들들**에게 배정된 자들은, 약 3분의 1이 속았고, 거의 10 퍼센트의 과도기 사역자들이 함정에 빠졌다. **요한**은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 썼을 때 상징으로 이것을 봤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 당겨서, 흑암에 던져 넣었다.”

가장 큰 손실은 천사 직급에서 발생했지만,

every opportunity for deceiving the primitive peoples of a young and undeveloped world.

53:7.3 (607.4) All secession propaganda had to be carried on by personal effort because the broadcast service and all other avenues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were suspended by the action of the system circuit supervisors. Upon the actual outbreak of the insurrection the entire system of Satania was isolated in both the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circuits. During this time all incoming and outgoing messages were dispatched by seraphic agents and Solitary Messengers. The circuits to the fallen worlds were also cut off, so that Lucifer could not utilize this avenue for the furtherance of his nefarious scheme. And these circuits will not be restored so long as the archrebel lives within the confines of Satania.

53:7.4 (607.5) This was a Lanonandek rebellion. The higher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did not join the Lucifer secession, although a few of the Life Carriers stationed on the rebel planets were somewhat influenced by the rebellion of the disloyal princes. None of the Trinitized Sons went astray. The Melchizedeks, archangels, and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ere all loyal to Michael and, with Gabriel, valiantly contended for the Father's will and the Son's rule.

53:7.5 (608.1) No beings of Paradise origin were involved in disloyalty. Together with the Solitary Messengers they took up headquarters on the world of the Spirit and remain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aithful of Days of Edentia. None of the conciliators apostatized, nor did a single one of the Celestial Recorders go astray. But a heavy toll was taken of the Morontia Companions and the Mansion World Teachers.

53:7.6 (608.2) Of the supreme order of seraphim, not an angel was lost, but a considerable group of the next order, the superior, were deceived and ensnared. Likewise a few of the third or supervisor order of angels were misled. But the terrible breakdown came in the fourth group, the administrator angels, those seraphim who are normally assigned to the duties of the system capitals. Manotia saved almost two thirds of them, but slightly over one third followed their chief into the rebel ranks. One third of all the Jerusalem cherubim attached to the administrator angels were lost with their disloyal seraphim.

53:7.7 (608.3) Of the planetary angelic helpers, those assigned to the Material Sons, about one third were deceived, and almost ten per cent of the transition ministers were ensnared. In symbol John saw this when he wrote of the great red dragon, saying: “And his tail drew a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cast them down in darkness.”

53:7.8 (608.4) The greatest loss occurred in the

지성체 중에서 하위 계층들 대부분이 불충성에 말려들었다. **사타니아**에서 손실된 681,217명의 **물질 아들들** 중에서 95퍼센트는 **루시퍼** 반역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였다. **행성 왕자**가 **루시퍼**의 주장에 가담한 그런 행성마다, 많은 숫자의 중도 피조물이 손실됐다.

여러 면에서, 이 반역은 **네바돈**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광범하고 비참했다. 다른 두 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격체가 이 폭동에 가담했다. 그리고 **루시퍼**와 **사탄**의 밀사 {密使}들이, 완결성취자 문화 행성에 있는 유아-훈련 학교들에 해를 입혔는데, 여러 진화 세계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된 발전하는 이 정신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불명예가 됐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공격받기 쉬웠지만, 하위 영들보다는 반역의 꾀변을 더 잘 견뎠다. **조울사**와 최종 융합을 이루지 못한, 하위 맨션 세계들에 있는 자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타락했지만, **예루셈**에 거주하는 **사타니아**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도 **루시퍼**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승 기획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려준다.

온 **네바돈**의 방송국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천상의 지성체로 이뤄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근심에 찌인 시청자들로 가득 메워졌는데, 그들은 **사타니아** 반역에 대한 속보를 속독했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여러 보고서가 잇달아 제시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으며, 탈퇴와 죄의 것발 주변에 그토록 즉시 모여든, 교활한 악의 세력 전체가 연합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지휘 하에 이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때부터 **루시퍼**의 후계자가 임명될 때까지, 체계 시간으로 2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주권자**가 왔는데, 참모진과 함께 유리바다에 도착했다. 나는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에서 동원한 예비군에 속해 있었으며,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에게 전한, **라나휘지**의 첫 메시지를 잘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 “**예루셈** 시민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가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남았고, 모두가 혹독한 시험에서 승리자로 나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존체험이, 반역을 방지하는 가장 큰 보장이고, 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호조치라는, 확신을 주는 이 메시지가, **살빙톤**, **우버사**, 및 **낙원**에 전달됐다. 이 숭고한 **예루셈** 집단의 신실한 필사자는 정확하게 187,432,811명이었다.

라나휘지의 도착과 함께, 최고 반역자들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든 통치 권능을 빼앗겼지만, 그들은 **예루셈**, 모론시아 구체들, 그리고 심지어 각 인간거주 세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들의 정신을 혼동시

angelic ranks, but most of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were involved in disloyalty. Of the 681,227 Material Sons lost in Satania, ninety-five per cent were casualties of the Lucifer rebellion. Large numbers of midway creatures were lost on those individual planets whose Planetary Princes joined the Lucifer cause.

53:7.9 (608.5) In many respects this rebellion was the most widespread and disastrous of all such occurrences in Nebadon. More personalities were involved in this insurrection than in both of the others. And it is to their everlasting dishonor that the emissaries of Lucifer and Satan spared not the infant-training schools on the finaliter cultural planet but rather sought to corrupt these developing minds in mercy salvaged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53:7.10 (608.6) The ascending mortals were vulnerable, but they withstood the sophistries of rebellion better than the lower spirits. While many on the lower mansion worlds, those who had not attained final fusion with their Adjusters, fell, it is recorded to the glory of the wisdom of the ascension scheme that not a single member of the Satania ascendant citizenship resident on Jerusem participated in the Lucifer rebellion.

53:7.11 (608.7) Hour by hour and day by day the broadcast stations of all Nebadon were thronged by the anxious watchers of every imaginable class of celestial intelligence, who intently perused the bulletins of the Satania rebellion and rejoiced as the reports continuously narrated the unswerving loyalty of the ascending mortals who, under their Melchizedek leadership, successfully withstood the combined and protracted efforts of all the subtle evil forces which so swiftly gathered around the banners of secession and sin.

53:7.12 (608.8) It was over two years of system time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in heaven” until the installation of Lucifer’s successor. But at last the new Sovereign came, landing on the sea of glass with his staff. I was among the reserves mobilized on Edentia by Gabriel, and I well remember the first message of Lanaforge to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It read: “Not a single Jerusem citizen was lost. Every ascendant mortal survived the fiery trial and emerged from the crucial test triumphant and altogether victorious.” And on to Salvington, Uversa, and Paradise went this message of assurance that the survival experience of mortal ascension is the greatest security against rebellion and the surest safeguard against sin. This noble Jerusem band of faithful mortals numbered just 187,432,811.

53:7.13 (609.1) With the arrival of Lanaforge the archrebels were dethroned and shorn of all governing powers, though they were permitted freely to go about Jerusem, the morontia spheres, and even to the individual inhabited worlds. They

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속이고 유혹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있는 **예루셈** 언덕에서 그들이 하던 일을 고려할 때,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퍼는 **사타니아**에서 모든 경영 권세를 뺏겼지만, 당시에는 이 사악한 반역을 억제하거나 쳐부술 수 있는 지방우주 권능 또는 법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때 **미가엘**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었다. 체계 정부를 장악하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성파 아버지들**을 지지했지만, **루시퍼, 사탄**,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 대한 현재의 신분과 미래의 처분에 관해, 아직 미해결된 많은 상소(上訴)에 대한 그 다음 결정을 전혀 하달한 바 없다.

이처럼 이 최고 반역자들은 체계 전체를 배회하도록 허락했고, 불만과 자주적 주장을 외치는 자신의 교리를 더욱 퍼뜨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동안 다른 세계를 속일 수 없었다. 37개의 세계가 타락한 후에, 어떤 **사타니아** 세계도, 심지어 반역이 있던 시대 이후에 사람이 살게 된 더 젊은 세계들도 파멸되지 않았다.

8. 유란시아에 온 사람의 아들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루시퍼**와 **사탄**은 **사타니아** 체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연합해서 **사람의 아들**을 공격하는 동안, 그들은 너희 세계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

그 전에, **행성 왕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사탄도 왔으며**”, 그는 타락한 **행성 왕자들**의 격리된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이후로, 그는 **예루셈**에서 그런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다. **미가엘**이 육신 속에 증여됐을 때 그를 타락시키려고 **루시퍼**와 **사탄**이 애쓴 후에, 그들에 대한 모든 연민의 정이, 죄로 인해 고립된 세계들은 제외하고, **사타니아** 전체에서 사라졌다.

미가엘의 증여가, 배신한 **행성 왕자들**의 행성을 제외한 **사타니아** 전체에서 **루시퍼** 반역을 차단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을 때, 자신이 몸소 겪은 체험을 의미했다. **사탄**은 마지막 결정적 투쟁을 벌이려고, **루시퍼**와 함께 **유란시아**에 왔었다.

사람의 아들은 성공할 자신이 있었으며, 너희 세계에서 승리하면, **사타니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다른 두 체계에서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적이었던 자들의 신분을 영원히 해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루시퍼**의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continued their deceptive and seductive efforts to confuse and mislead the minds of men and angels. But as concerned their work on the administrative mount of Jerusalem, “their place was found no more.”

53:7.14 (609.2) While Lucifer was deprived of all administrative authority in Satania, there then existed no local universe power nor tribunal which could detain or destroy this wicked rebel; at that time Michael was not a sovereign ruler. The Ancients of Days sustained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their seizure of the system government, but they have never handed down any subsequent decisions in the many appeals still pending with regard to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sposition of Lucifer, Satan, and their associates.

53:7.15 (609.3) Thus were these archrebels allowed to roam the entire system to seek further penetration for their doctrines of discontent and self-assertion. But in almost two hundred thousand Urantia years they have been unable to deceive another world. No Satania worlds have been lost since the fall of the thirty-seven, not even those younger worlds peopled since that day of rebellion.

8. THE SON OF MAN ON URANTIA

53:8.1 (609.4) Lucifer and Satan freely roamed the Satania system until the completion of the bestowal mission of Michael on Urantia. They were last on your world together during the time of their combined assault upon the Son of Man.

53:8.2 (609.5) Formerly, when the Planetary Princes, the “Sons of God,” were periodically assembled, “Satan came also,” claiming that he represented all of the isolated worlds of the fallen Planetary Princes. But he has not been accorded such liberty on Jerusalem since Michael’s terminal bestowal. Subsequent to their effort to corrupt Michael when in the bestowal flesh, all sympathy for Lucifer and Satan has perished throughout all Satania, that is, outside the isolated worlds of sin.

53:8.3 (609.6) The bestowal of Michael terminated the Lucifer rebellion in all Satania aside from the planets of the apostate Planetary Princes. And this was the significance of Jesus’ personal experience, just before his death in the flesh, when he one day exclaimed to his disciples, “And I beheld Satan fall as lightning from heaven.” He had come with Lucifer to Urantia for the last crucial struggle.

53:8.4 (609.7) The Son of Man was confident of success, and he knew that his triumph on your world would forever settle the status of his agelong enemies, not only in Satania but also in the other two systems where sin had entered. There was

너희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태연하게 신성한 확신을 갖고 말했을 때, 필사자는 생존하게 됐고, 천사들에게는 보호수단이 생겼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루시퍼** 반역의 실제 종말이었다. 반역을 타파해 달라는 **가브리엘**의 요청에 대해서 **우버사** 법정이 행정적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캘리개스차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에게서 **유란시아**의 법적 **왕자**로서 인정받았다. **예수**가 말했다: “이제는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때이며; 이제 이 세계의 왕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생 업무가 완결될 날이 더 가까워지자, “이 세계의 왕자가 심판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폐위되고 불신임 당한 바로 이 **왕자**를, 한때 “**유란시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했다. 너희의 배신자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에게는,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사악한 계교를 실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사악한 현존과 함께 저주 받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혼에 접근할 수도 없다.

미가엘이 증여되기 전에, 이 어둠의 통치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획책했으며, 하위의 종속된 천상의 인격체들에게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이 불충한 **캘리개스차**와,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비열한 동료 **달리개스차**는, **낙원 사고 조율사**들과, 보호하는 **진리의 영**, 즉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미가엘**의 영의 신성한 위엄 앞에 굴복하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어떤 타락한 영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침투하거나 혼을 괴롭히는 능력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사탄**뿐 아니라 **캘리개스차**도, **하나님**의 신앙 아들을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없었으며; 신앙은 죄와 죄악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전신갑주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 보호하며,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방종하는 필사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들은 다만 자신의 선천적이고 타락한 성향에 지배되고,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악에 대해서도 크게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캘리개스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상당히 무력화됐다.

survival for mortals and security for angels when your Master, in reply to the Lucifer proposals, calmly and with divine assurance replied, “Get you behind me, Satan.” That was, in principle, the real end of the Lucifer rebellion. True, the Uversa tribunals have not yet rendered the executive decision regarding the appeal of Gabriel praying for the destruction of the rebels, but such a decree will, no doubt, be forthcoming in the fullness of time since the first step in the hearing of this case has already been taken.

53:8.5 (610.1) Caligastia was recognized by the Son of Man as the technical Prince of Urantia up to near the time of his death. Said Jesu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down.” And then still nearer the completion of his lifework he announced,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And it is this same dethroned and discredited Prince who was once termed “God of Urantia.”

53:8.6 (610.2) The last act of Michael before leaving Urantia was to offer mercy to Caligastia and Daligastia, but they spurned his tender proffer. Caligastia, your apostate Planetary Prince, is still free on Urantia to prosecute his nefarious designs, but he has absolutely no power to enter the minds of men, neither can he draw near to their souls to tempt or corrupt them unless they really desire to be cursed with his wicked presence.

53:8.7 (610.3) Before the bestowal of Michael these rulers of darkness sought to maintain their authority on Urantia, and they persistently withstood the minor and subordinate celestial personalities. But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is traitorous Caligastia and his equally contemptible associate, Daligastia, are servile before the divine majesty of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s and the protectiv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Michael, which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53:8.8 (610.4) But even so, no fallen spirit ever did have the power to invade the minds or to harass the souls of the children of God. Neither Satan nor Caligastia could ever touch or approach the faithful sons of God; faith is an effective armor against sin and iniquity. It is true: “He who is born of God keeps himself, and the wicked one touches him not.”

53:8.9 (610.5) In general, when weak and dissolute mortals are suppos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devils and demons, they are merely being dominated by their own inherent and debased tendencies, being led away by their own natural propensities. The devil has been given a great deal of credit for evil which does not belong to him. Caligastia has been comparatively impotent since the cross of Christ.

9. 반역의 현재 상태

루시퍼 반역 시대에 일찍부터, **미가엘**은 모든 반역자에게 구원을 제시했다. 참된 회개를 증명하려는 모든 자에게, **미가엘**은 완성된 우주 주권을 성취한 후에, 이들을 용서하고 어떤 형태의 우주 봉사로 복직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모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자비로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의 **물질 아들**과 **딸**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천사들 및 낮은 계층의 천사의 존재들은, **파네티아인**들이 선포한 자비를 받아들였고, 1,9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복권됐다. 이 존재들은 그 후에 **예루셈의 아버지** 세계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가브리엘 대(對) 루시퍼** 문제에 대해서 **우버사** 법정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거기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멸 판결이 내려질 때, 회개하고 구원된 이 인격체들은 소멸 판결에서 제외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중인 이 혼들은 지금, **아버지**의 세계를 돌보는 일에 **파네티아인**과 함께 수고하고 있다.

미가엘이 증여를 완수하고 마침내 **네바돈**의 무조건적 통치자로서 확실히 취임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획책하던 그날 이후로, 그 최고 사기꾼은 **유란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전혀 없었다.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확립된 지배자가 됨에 따라서, **루시퍼**는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의 대행자들에게 구금됐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셈**에 있는 **아버지**의 변환 구체 중에서 1_번 위치에 죄수로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와 체계들의 통치자들은, **사타니아**의 불충한 **주권자**의 종말을 여기서 목격한다. **바울**은 **미가엘**의 증여에 뒤따른 이 반역 주모자들의 상태에 관해서 알았는데, **캘리개스차**의 우두머리들에 대해, “하늘의 거처에 있는 사악한 영적 무리”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미가엘은, **네바돈**에 대한 최고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소송사건에서 연방우주 법정이 통치할 때까지, **루시퍼** 반역에 관련된 모든 인격체를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너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전에 **우버사** 최고 법정에 기록됐다. 체계 수도(首都) 집단과 관해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미가엘**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그런 배신한 세계들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는 **우버사**의 법정이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소송사건의 판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사탄**은 타락한 세계의 배신한 왕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너희에게는 주재하고 있는 **아들**이 없었으므

9. PRESENT STATUS OF THE REBELLION

53:9.1 (610.6) Early in the days of the Lucifer rebellion, salvation was offered all rebels by Michael. To all who would show proof of sincere repentance, he offered, upon his attainment of complete universe sovereignty, forgiveness and reinstatement in some form of universe service. None of the leaders accepted this merciful proffer. But thousands of the angels and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cluding hundred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ccepted the mercy proclaimed by the Panoptians and were given rehabilitation at the time of Jesus' resurrection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se beings have since been transferred to the Father's world of Jerusalem, where they must be held, technically, until the Uversa courts hand down a decision in the matter of Gabriel vs. Lucifer. But no one doubts that, when the annihilation verdict is issued, these repentant and salvaged personalities will be exempted from the decree of extinction. These probationary souls now labor with the Panoptians in the work of caring for the Father's world.

53:9.2 (611.1) The archdeceiver has never been on Urantia since the days when he sought to turn back Michael from the purpose to complete the bestowal and to establish himself finally and securely as the unqualified ruler of Nebadon. Upon Michael's becoming the settled head of the universe of Nebadon, Lucifer was taken into custody by the agents of the Uversa Ancients of Days and has since been a prisoner on satellite number one of the Father's group of the transition spheres of Jerusalem. And here the rulers of other worlds and systems behold the end of the unfaithful Sovereign of Satania. Paul knew of the status of these rebellious leaders following Michael's bestowal, for he wrote of Caligastia's chiefs as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53:9.3 (611.2) Michael, upon assuming the supreme sovereignty of Nebadon, petitioned the Ancients of Days for authority to intern all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Lucifer rebellion pending the rulings of the superuniverse tribunals in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placed on the records of the Uversa supreme court almost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s you reckon time. Concerning the system capital group, the Ancients of Days granted the Michael petition with but a single exception: Satan was allowed to make periodic visits to the apostate princes on the fallen worlds until another Son of God should be accepted by such apostate worlds, or until such time as the courts of Uversa should begin the adjudication of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53:9.4 (611.3) Satan could come to Urantia because

로--곧 **행성 왕자**도 없고 **물질 아들**도 없었으므로--**사탄**이 **유란시아**에 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고 선포돼 왔으며,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이 다뤄지는 일은, 격리된 모든 세계에서 임시 행성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다. 본 계시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사탄**이 주기적으로 **캘리개스타** 및 다른 타락한 왕자들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데, 최고 반역자들의 소멸을 요청하는 **가브리엘**의 탄원에 대해, 이때 첫 청문회가 열렸다. **사탄**은 지금 **예루셈** 감옥 세계에 무조건 억류돼 있다.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가 이뤄진 후로, **사타니아**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억류된 반역자들을 돌보기 위해 감옥 세계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그 사기꾼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다. 1,900년 동안 그 상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태고 항존자들**이 최고 반역자들에 대해 마지막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현재의 **사타니아** 규제 조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체계의 회로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그는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반역은 **예루셈**에서 이미 끝났다. 타락한 세계들에서, 반역은 신성한 **아들**들이 도착하자마자 끝난다. 자비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모든 반역자는 이미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 반역자들에게서 인격 실존을 빼앗게 됐다는 방송이 변쩍 임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억류된 이 반역자들을 소멸시킬 사형집행 방송이, **우버사**의 판결을 선포하게 되리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있던 자리를 찾겠지만, 그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를 알던 자들이 너로 인해 놀랄 것이며;너는 두려운 존재였으나, 더 이상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익한 이 모든 반역자마다, “저희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모두가 **우버사** 판결을 기다린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타니아**에서 영적 어둠이 가득했던 일곱 감옥 세계는 **네바돈** 전체에 엄숙한 경고가 돼왔는데, “죄인의 길은 괴롭다”; “모든 죄에는 그 자체를 파괴하는 씨앗이 들어 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선포한다.

[한때 **유란시아**의 관재인신분에 부속됐던 **마노반데트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you had no Son of standing in residence — neither Planetary Prince nor Material Son. Machiventa Melchizedek has since been proclaimed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e opening of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has signalized the inauguration of temporary planetary regimes on all the isolated worlds. It is true that Satan did periodically visit Caligastia and others of the fallen prince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presentation of these revelations, when there occurred the first hearing of Gabriel's plea for the annihilation of the archrebels. Satan is now unqualifiedly detained on the Jerusem prison worlds.

53:9.5 (611.4) Since Michael's final bestowal no one in all Satania has desired to go to the prison worlds to minister to the interned rebels. And no more beings have been won to the deceiver's cause. For nineteen hundred years the status has been unchanged.

53:9.6 (611.5) We do not look for a removal of the present Satania restrictions until the Ancients of Days make final disposition of the archrebels. The system circuits will not be reinstated so long as Lucifer lives. Meantime, he is wholly inactive.

53:9.7 (611.6) The rebellion has ended on Jerusem. It ends on the fallen worlds as fast as divine Sons arrive. We believe that all rebels who will ever accept mercy have done so. We await the flashing broadcast that will deprive these traitors of personality existence. We anticipate the verdict of Uversa will be announced by the executionary broadcast which will effect the annihilation of these interned rebels. Then will you look for their places, but they shall not be found. “And they who know you among the worlds will be astonished at you; you have been a terror, but never shall you be any more.” And thus shall all of these unworthy traitors “become as though they had not been.” All await the Uversa decree.

53:9.8 (611.7) But for ages the seven prison worlds of spiritual darkness in Satania have constituted a solemn warning to all Nebadon, eloquently and effectively proclaiming the great truth “that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that within every sin is concealed the seed of its own destruction”;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53:9.9 (612.1) [Presented by Manovandet Melchizedek, onetime attached to the receivership of Urantia.]

제54편. 루시퍼 반역의 문제점

⇨ 053

유랜시아 책

055 ⇨

II 부. 지방우주

제54편
루시퍼 반역의 문제점

섹션

소개

1. 참 자유와 거짓 자유
2. 자유를 도둑질함
3. 응보의 시간 지연
4. 자비의 시간 지연
5. 지연시키는 지혜
6. 사랑의 승리

PAPER 54
PROBLEMS OF THE LUCIFER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1. True and False Liberty
2. The Theft of Liberty
3. The Time Lag of Justice
4. The Mercy Time Lag
5. The Wisdom of Delay
6. The Triumph of Love

소개

진화하는 사람은, 악, 실책, 죄, 및 죄악(罪惡)의 의미심장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챈다.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현격한 차이가 잠재적 악을 산출한다는 것; 일치하지 않는 진리와 거짓말이 혼란스런 실책을 만든다는 것;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 선택권이, 결국 죄와 정의라는 정 반대 영역으로 갈라진다는 것; 끊임없는 신성 추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죄악의 영역으로 이끈다는 것 등을, 사람은 감지하기 어렵다.

하나님들은, 악을 창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반역을 용납하지도 않으신다. 차등적인 수준의 완전성 의미 및 가치기준이 허용되는 우주에서, 잠재적 악(惡)은 경우에 따라서 실존한다. 죄(罪)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은, 모든 영역에 잠재한다. 진리와 허구, 즉 사실과 거짓의 바로 그 모순된 현존이, 실책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준다. 악을 고의로 선택하는 것이 죄를 가져오며;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실책이며; 죄와 실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죄악이다.

INTRODUCTION

54:0.1 (613.1) EVOLUTIONARY man finds it difficult fully to comprehend the significance and to grasp the meanings of evil, error, sin, and iniquity. Man is slow to perceive that contrastive perfection and imperfection produce potential evil; that conflicting truth and falsehood create confusing error; that the divine endowment of freewill choice eventuates in the divergent realms of sin and righteousness; that the persistent pursuit of divinity leads to the kingdom of God as contrasted with its continuous rejection, which leads to the domains of iniquity.

54:0.2 (613.2) The Gods neither create evil nor permit sin and rebellion. Potential evil is time-existent in a universe embracing differential levels of perfection meanings and values. Sin is potential in all realms where imperfect beings are endowed with the ability to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The very conflicting presence of truth and untruth, fact and falsehood, constitutes the potentiality of error. The deliberate choice of evil constitutes sin; the willful rejection of truth is error; the persistent pursuit of sin and error is iniquity.

1. 참 자유와 거짓 자유

루시퍼 반역에서 발생한 복잡한 모든 문제 가운데, 미성숙한 진화 필사자들이 참 자유와 거짓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참 자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추구됐고,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어졌다. 거짓 자유는, 시간세계에서 생기는 잘못과, 공간으로 말미암는 악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속임수다. 영속적 자유는 공의의 실체에--곧 지성, 성숙, 형제애, 및 공정성에--입각한다.

자유는, 그 동기가 우둔하고 무조건이며 통제되지 않을 때, 시공우주 실존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방편이 된다. 참 자유는, 점진적으로 실체에 관련되며, 사회적 공정성, 시공우주 공평성, 온 인류 형제애, 및 신성한 책무에 늘 주의한다.

자유는, 물질적 공의, 지적 공평성, 사회적 관용, 도덕적 의무, 및 영적 가치에서 분리될 때 자멸 {自滅}한다. 자유는 시공우주 실체와 분리돼서 실존할 수 없으며, 어떤 인격체든지 그 실체는 인격과 신성의 관계에 비례한다.

억제되지 않은 자아 의지와 통제되지 않은 자아 표현은, 완화된 이기심, 즉 경건치 못함의 극치다. 협력해서 점점 더 자아를 정복하지 않는 자유는, 자기본위인 필사자의 망상에서 생긴 허구다. 스스로 유발한 자유는, 개념적 환상, 즉 잔인한 속임수다. 자유라는 옷으로 변장한 방종에는 비참한 속박이 따른다.

참 자유는 진실된 자존감의 친구이며; 거짓 자유에는 자아 찬양이 따라다닌다. 참 자유는 자아를 통제함으로써 얻는 열매이며; 거짓 자유는 주체념은 자주적 주장이다. 자아 통제는 이타적 봉사로 이끌며; 자아 찬양은, 불의한 권능으로 동료 존재들을 압제하기 위해 올바른 달성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된 개인의 이기적 야망을 채우려고 남들을 착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혜조차, 그 범위가 시공우주이고 동기가 영적일 경우에만 신성하고 안전하다.

다른 존재들이 가진 선천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도록, 지적 존재들을 유도하는 그런 종류의 자기 속임수보다 더 큰 실책은 없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황금률은, 그런 모든 기만, 불공평, 이기심, 및 불의에 맞서서 외친다. 참되고 진정한 자유만이, 사랑의 통치 및 자비의 사역과 양립할 수 있다.

우주의 **최상급 통치자**들이, 이런 의지의 특권

1. TRUE AND FALSE LIBERTY

54:1.1 (613.3) Of all the perplexing problems growing out of the Lucifer rebellion, none has occasioned more difficulty than the failure of immature evolutionary mortals to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liberty.

54:1.2 (613.4) True liberty is the quest of the ages and the reward of evolutionary progress. False liberty is the subtle deception of the error of time and the evil of space. Enduring liberty is predicated on the reality of justice — intelligence, maturity, fraternity, and equity.

54:1.3 (613.5) Liberty is a self-destroying technique of cosmic existence when its motivation is unintelligent, unconditioned, and uncontrolled. True liberty is progressively related to reality and is ever regardful of social equity, cosmic fairness, universe fraternity, and divine obligations.

54:1.4 (613.6) Liberty is suicidal when divorced from material justice, intellectual fairness, social forbearance, moral duty, and spiritual values. Liberty is nonexistent apart from cosmic reality, and all personality reality is proportional to its divinity relationships.

54:1.5 (613.7) Unbridled self-will and unregulated self-expression equal unmitigated selfishness, the acme of ungodliness. Liberty without the associated and ever-increasing conquest of self is a figment of egoistic mortal imagination. Self-motivated liberty is a conceptual illusion, a cruel deception. License masquerading in the garments of liberty is the forerunner of abject bondage.

54:1.6 (614.1) True liberty is the associate of genuine self-respect; false liberty is the consort of self-admiration. True liberty is the fruit of self-control; false liberty, the assumption of self-assertion. Self-control leads to altruistic service; self-admiration tends towards the exploitation of others for the selfish aggrandizement of such a mistaken individual as is willing to sacrifice righteous attainment for the sake of possessing unjust power over his fellow beings.

54:1.7 (614.2) Even wisdom is divine and safe only when it is cosmic in scope and spiritual in motivation.

54:1.8 (614.3) There is no error greater than that species of self-deception which leads intelligent beings to crave the exercise of power over other beings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these persons of their natural liberties. The golden rule of human fairness cries out against all such fraud, unfairness, selfishness, and unrighteousness. Only true and genuine liberty is compatible with the reign of love and the ministry of mercy.

54:1.9 (614.4) How dare the self-willed creature

과 인격의 잠재성을 자비롭게 존중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 자기 뜻대로 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개인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료들의 권한을 침입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유를 행사하면서, **창조주**가 수여 하고, 충실한 모든 동료와 하급자와 국민이 온당하게 존중하는, 그런 실존 특권을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빼앗을 권한은 없다.

진화하는 사람은, 죄와 죄악이 있는 세계에서, 또는 원시적인 진화하는 구체의 초기 시절에, 자신의 물질적 자유를 위해서 폭군이나 압제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모론시아 세계 또는 영 {靈}의 구체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전쟁은 초기의 진화하는 사람이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문명 세계에서는, 인종적 오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물리적 투쟁이 오래 전부터 나쁘게 평가돼 왔다.

2. 자유를 도둑질함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영원한 **하보나**를 입안했으며, 그 후로 늘 창조에 대등하게 참여하는--즉 공유하는-- 영원한 원형 {元型}이 널리 통용된다. 공유하는 이 원형은, 영원히 완전한 중앙우주를 시간세계에 복제하는 시도에 착수하려고 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를 위한, 주요 밑그림이다.

아버지 뜻 행하기를 열망하는 전체 진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체험함으로 완전성을 달성하는 이 장엄한 모험에서, 시_공간 **창조주**들의 동역자가 되게 돼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창조적 자유의지를 그런 피조물에게 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들 속에 내주하는, 즉 자신의 영을 수단으로 해서 그들과 동역 관계를 실제로 맺는 일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루시퍼의 어리석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체험하는 우주에서 시간을 옆길로 단축시키려는 시도였다. **루시퍼**의 범죄는,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인격체가 가진 창조성을 뺏으려고 피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빛과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긴 진화 투쟁에 피조물이 몸소 참여하는--곧 자유의지로 참여하는-- 권리를 몰래 박탈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한때 너희 체계의 **주권자**였던 이 존재는, 모든 인격있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증여하신 데서 드러난 목적, 즉 **하나님** 뜻의 영원한 목적에 상반되는 자기 뜻을 목적으로 정했다. **루시퍼** 반역은, 이처럼 **사타니아** 체계의 상승자와 봉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 가능성을 침해했다--이것은 언젠가 완전하게 된 **사타니아** 체계로서 존재할, 서서히 세워지는 체험적 지혜의 기념비에, 이런 모든 존재로부터 무언가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을 기여하는, 감격적인 체험을 영원히 빼앗는 위협이

encroach upon the rights of his fellows in the name of personal liberty when the Supreme Rulers of the universe stand back in merciful respect for these prerogatives of will and potentials of personality! No being, in the exercise of his supposed personal liberty, has a right to deprive any other being of those privileges of existence conferred by the Creators and duly respected by all their loyal associates, subordinates, and subjects.

54:1.10 (614.5) Evolutionary man may have to contend for his material liberties with tyrants and oppressors on a world of sin and iniquity or during the early times of a primitive evolving sphere, but not so on the morontia worlds or on the spirit spheres. War is the heritage of early evolutionary man, but on worlds of normal advancing civilization physical combat as a technique of adjusting racial misunderstandings has long since fallen into disrepute.

2. THE THEFT OF LIBERTY

54:2.1 (614.6) With the Son and in the Spirit did God project eternal Havona, and ever since has there obtained the eternal pattern of co-ordinate participation in creation — sharing. This pattern of sharing is the master design for every on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who go out into space to engage in the attempt to duplicate in time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al perfection.

54:2.2 (614.7) Every creature of every evolving universe who aspires to do the Father's will is destined to become the partner of the time-space Creators in this magnificent adventure of experiential perfection attainment. Were this not true, the Father would have hardly endowed such creatures with creative free will, neither would he indwell them, actually go into partnership with them by means of his own spirit.

54:2.3 (614.8) Lucifer's folly was the attempt to do the nondoable, to short-circuit time in an experiential universe. Lucifer's crime was the attempted creative disenfranchisement of every personality in Satania, the unrecognized abridgment of the creature's personal participation — freewill participation — in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to attain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so doing this onetime Sovereign of your system set the temporal purpose of his own will directly athwart the eternal purpose of God's will as it is revealed in the bestowal of free will upon all personal creatures. The Lucifer rebellion thus threatened the maximum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freewill choice of the ascenders and servers of the system of Satania — a threat forevermore to deprive every one of these beings of the thrilling

다. 그리하여 루시퍼 성명서는, 자유라는 옷으로 변장하면서, 개인적 자유의 탈취를 완성하려고, 그리고 온 네바돈 역사에서 오직 두 번 진행됐던 규모로 그것을 행하려고, 명료한 이성{理性}의 입장에서 볼 때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하면서 나아갔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천사들에게 주신 것을, **루시퍼**가 그들로부터 뺏고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이 지역 체계의 운명과 그들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신성한 특권이다.

참 자유, 즉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료들을 섬기는 특권을 다른 존재로부터 뺏을 정당한 자유가, 우주 전체에서 아무에게도 없다.

3. 응보의 시간 지연

진화 세계들에서, 의지를 지닌 도덕적 피조물은, 온전히 지혜로운 **창조주**들이 왜 악과 죄를 허용하는가, 등의 경솔한 질문으로 항상 근심한다. 피조물이 정말로 자유로우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수임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진화하는 사람 또는 고상한 천사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철학 개념, 즉 상징적 이상{理想}이 아니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은 우주 실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최상급 통치자**들이 부여한 것이며, 그들은, 어떤 존재 또는 존재들 집단도, 신성하게 증여된 이 자유를, 넓은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인격체에게서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잘못 명명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잘못 인도되고 무지한 존재들을 만족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전심{全心}을 다해서 악(죄)에 공감하는 것이 비실존(소멸)과 동등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죄에 가담하는 때와, --그렇게 고의로 악을 택해서 생기는 자동 결과로-- 형벌이 집행되는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항상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개인의 우주 신분에 관해서, 모든 관련된 우주 인격체가 완전히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당연해서 죄인 자신도 동의할, 그런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다.

그러나 진리와 선{善}의 실체에 대항하는 이 우주 반역이 그 평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자기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판결의 집행은 **태고 항존자**들의 재량권에 따라서 연기돼야 한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은, 행악자 속에 있는, 그리고 또한 모든 관

experience of contributing something personal and unique to the slowly erecting monument to experiential wisdom which will sometime exist as the perfected system of Satania. Thus does the Lucifer manifesto, masquerading in the habiliments of liberty, stand forth in the clear light of reason as a monumental threat to consummate the theft of personal liberty and to do it on a scale that has been approached only twice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54:2.4 (615.1) In short, what God had given men and angels Lucifer would have taken away from them, that is, the divine privilege of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of their own destinies and of the destiny of this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54:2.5 (615.2) No being in all the universe has the rightful liberty to deprive any other being of true liberty, the right to love and be loved, the privilege of worshiping God and of serving his fellows.

3. THE TIME LAG OF JUSTICE

54:3.1 (615.3) The moral will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always bothered with the unthinking question as to why the all-wise Creators permit evil and sin. They fail to comprehend that both are inevitable if the creature is to be truly free. The free will of evolving man or exquisite angel is not a mere philosophic concept, a symbolic ideal. Man's ability to choose good or evil is a universe reality. This liberty to choose for oneself is an endowment of the Supreme Rulers, and they will not permit any being or group of beings to deprive a single personality in the wide universe of this divinely bestowed liberty — not even to satisfy such misguided and ignorant beings in the enjoyment of this misnamed personal liberty.

54:3.2 (615.4) Although conscious and wholehearted identification with evil (sin) is the equivalent of nonexistence (annihilation), there must always intervene between the time of such personal identification with sin and the execution of the penalty — the automatic result of such a willful embrace of evil — a period of time of sufficient length to allow for such an adjudication of such an individual's universe status as will prove entirely satisfactory to all related universe personalities, and which will be so fair and just as to win the approval of the sinner himself.

54:3.3 (615.5) But if this universe rebel against the reality of truth and goodness refuses to approve the verdict, and if the guilty one knows in his heart the justice of his condemnation but refuses to make such confession, then must the execution of sentence be delayed in accordance with the discre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Ancients of Days refuse to annihilate any being

런된 후원자 및 가능성 있는 동조자 속에 있는, 모든 도덕적 가치와 모든 영적 실체가 없어질 때까지, 어떤 존재든지 소멸시키기를 거부한다.

4. 자비의 시간 지연

노라티아덱 성좌에서, 설명하기에 어느 정도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는, 체포되고 억류되고 판결받기 전까지 무척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치도록, 무슨 이유로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타락한 왕자들을 내버려두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녀를 낳고 키운 부모는, **창조주**이자 아버지인 **미가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파괴시키기를 왜 주저하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관한 **예수**의 비유는,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의 회개를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악을 행하는 피조물이 실제로 잘못을 범하기로--즉 죄를 짓기로--선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유_의지작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연장된 자비가 회개와 복권이 이뤄지게만 한다면, 응보를 집행하는 데 아무리 오래 지연되더라도 이를 충분히 정당화한다.

루시퍼는 자신이 추구했던 대부분의 자유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은 그가 앞으로 받게 돼있었다. 자기가 지금 간청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우주를 진정시키는 모든 다른 존재의 권한과 자유를 고려해야 할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바심에게 길을 내주고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고귀한 이 재능들 전체가 사라졌다. 윤리적 책무는 선천적이고, 신성하며, 보편적이다.

최상급 통치자들이 **루시퍼** 반역의 지도자들을 즉각 괴멸시키거나 억류시키지 않는 많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응보의 집행을 이렇게 지연시킨 자비의 특색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친히 베푼 것이다. 과오를 범하는 **아들**들을 이 **창조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연방우주의 최상급 재판관이 활동했을 것이다. **루시퍼** 반역 같은 그런 사건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된 동안에 **네바돈**에서 발생했다면, 그런 악을 선동하는 자들은 즉시 철저히 소멸했을 지도 모른다.

최고의 응보는, 신성한 자비로 억제되지 않을 때, 즉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에 대한 자비의 사역이, 이 시간 지연, 즉 씨 뿌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 사이에, 이 구원의 간격을 항상 제공한다. 뿌려진 씨가 선하면, 이 간격은 성품을 시험하고 발전시켜주며; 뿌려진 씨가 악하면, 이 자비로운 연기는 회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행악자들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서 생기는 이 시간 지연은, 일곱 연방우주의

until all moral values and all spiritual realities are extinct, both in the evildoer and in all related supporters and possible sympathizers.

4. THE MERCY TIME LAG

54:4.1 (615.6) Another problem somewhat difficult of explanation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pertains to the reasons for permitting Lucifer, Satan, and the fallen princes to work mischief so long before being apprehended, interned, and adjudicated.

54:4.2 (616.1) Parents, those who have borne and reared children,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why Michael, a Creator-father, might be slow to condemn and destroy his own Sons. Jesus' story of the prodigal son well illustrates how a loving father can long wait for the repentance of an erring child.

54:4.3 (616.2) The very fact that an evil-doing creature can actually choose to do wrong — commit sin — establishes the fact of free-willness and fully justifies any length delay in the execution of justice provided the extended mercy might conduce to repentance and rehabilitation.

54:4.4 (616.3) Most of the liberties which Lucifer sought he already had; others he was to receive in the future. All these precious endowments were lost by giving way to impatience and yielding to a desire to possess what one craves now and to possess it in defiance of all obligation to respect the rights and liberties of all other beings compos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Ethical obligations are innate, divine, and universal.

54:4.5 (616.4) There are many reasons known to us why the Supreme Rulers did not immediately destroy or intern the leader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re are no doubt still other and possibly better reasons unknown to us. The mercy features of this delay in the execution of justice were extended personally by Michael of Nebadon. Except for the affection of this Creator-father for his erring Sons, the supreme justice of the superuniverse would have acted. If such an episode as the Lucifer rebellion had occurred in Nebadon while Michael was incarnated on Urantia, the instigators of such evil might have been instantly and absolutely annihilated.

54:4.6 (616.5) Supreme justice can act instantly when not restrained by divine mercy. But the ministry of mercy to the children of time and space always provides for this time lag, this saving interval between seedtime and harvest. If the seed sowing is good, this interval provides for the testing and upbuilding of character; if the seed sowing is evil, this merciful delay provides time for repentance and rectification. This time delay in the

자비 사역에 본래부터 들어있다. 이렇게 처벌을 자비가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주들을 지배하고 모든 피조물의 운명과 심판을 자비롭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비로운 시간 지연은 **창조주**들의 자유의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죄로 물든 반역을 처리할 때, 이런 인내라는 기법에서 선(善)이 우주에 파생된다. 악을 피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악에서 선이 발생할 수 없음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실천하기를 사랑하며 그의 영원한 계획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잠재적인 악과 드러난 악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똑같이 참이다.

그러나 이런 자비로운 지연에도 끝이 있다. **루시퍼** 반역에 대한 판결이 (**유란시아**에서 계산되는 시간으로) 오래 지연됐지만, 본 계시가 이뤄지는 동안,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첫 청문회가 **우버사**에서 열렸고, **사탄**을 **루시퍼**와 함께 감옥 세계에 가두도록 지시하는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이 곧 떨어졌음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이, **사타니아**의 타락한 세계들 가운데 어디에도 **사탄**이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했다. 자비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응보는 느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adjudication and execution of evildoers is inherent in the mercy ministr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is restraint of justice by mercy proves that God is love, and that such a God of love dominates the universes and in mercy controls the fate and judgment of all his creatures.

54:4.7 (616.6) The mercy delays of time are by the mandate of the free will of the Creators. There is good to be derived in the universe from this technique of patience in dealing with sinful rebels. While it is all too true that good cannot come of evil to the one who contemplates and performs evil, it is equally true that all things (including evil, potential and manifest) work together for good to all beings who know God, love to do his will, and are ascending Paradiseward according to his eternal plan and divine purpose.

54:4.8 (616.7) But these mercy delays are not interminable. Notwithstanding the long delay (as time is reckoned on Urantia) in adjudicating the Lucifer rebellion, we may record that, during the time of effecting this revelation, the first hearing in the pending case of Gabriel vs. Lucifer was held on Uversa, and soon thereafter there issued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directing that Satan be henceforth confined to the prison world with Lucifer. This ends the ability of Satan to pay further visits to any of the fallen worlds of Satania. Justice in a mercy-dominated universe may be slow, but it is certain.

5. 지연시키는 지혜

루시퍼와 그의 공모자들이 왜 더 빨리 억류되거나 판결을 받지 않았는지에 관해 내게 알려진 많은 이유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허락 받았다:

1. 자비는, 모든 범죄자가 자신의 악한 생각과 죄로 물든 행위에 관해서, 신중하고 온전하게 태도를 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2. 최고의 응보는 **아버지**의 사랑에 지배되며; 따라서 자비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응보가 결코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모든 행악자에게 허락된다.

3. 애정 어린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가운데 과오를 범하는 식구를 찾아가서 벌을 줄만큼 서두르는 법이 없다. 인내는 시간과 별개로 작용할 수 없다.

4.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한 가정에게 만드시 해롭지만, 지혜와 사랑은, 애정 어린 아버지가 허락한 시간 동안에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해서 참으라고, 정직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데, 죄지은 자가 그동안에 자기 방법의 오류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5. **루시퍼**에 대한 **미가엘**의 입장과 상관없이,

5. THE WISDOM OF DELAY

54:5.1 (617.1) Of the many reasons known to me as to why Lucifer and his confederates were not sooner interned or adjudicated, I am permitted to recite the following:

54:5.2 (617.2) 1. Mercy requires that every wrongdoer have sufficient time in which to formulate a deliberate and fully chosen attitude regarding his evil thoughts and sinful acts.

54:5.3 (617.3) 2. Supreme justice is dominated by a Father's love; therefore will justice never destroy that which mercy can save. Time to accept salvation is vouchsafed every evildoer.

54:5.4 (617.4) 3. No affectionate father is ever precipitate in visiting punishment upon an erring member of his family. Patience cannot function independently of time.

54:5.5 (617.5) 4. While wrongdoing is always deleterious to a family, wisdom and love admonish the upright children to bear with an erring brother during the time granted by the affectionate father in which the sinner may see the error of his way and embrace salvation.

54:5.6 (617.6) 5. Regardless of Michael's attitude

창조주 아들은, **루시퍼**의 **창조주** 아버지임에도, 당시에 자신의 중여 경력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네바돈**의 무조건적 주권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체계 주권자**에 대해서 즉석 재판을 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

6. **태고 항존자들**은 이 반역자들을 즉각 소멸시킬 수 있었지만, 충분한 청문회 없이는 행악자를 거의 처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미가엘**의 결정을 무효화하기를 거절했다.

7. 반역자들과 상관하지 말고, 반역이 스스로 소멸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라고, **임마누엘**이 **미가엘**에게 권고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합동 항존자**의 지혜는, **낙원 삼위일체**의 결합된 지혜가 시간상으로 반영된 것이다.

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실 항존자들**은 **성좌 아버지**들에게, **노라티아덱**의 모든 현재 및 미래 시민의—곧 모든 필사자, 모론시아 또는 영 피조물의—마음 속에서 이 행악자들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곧 뿌리째 뽑히도록, 끝까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반역자들에게 허용하라고 충고했다.

9. **예루셈**에서는 **오르본톤**의 **최고 행정관**의 개인 대리인은, **루시퍼 자유 선언**에 포함된 여러 문제에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가브리엘**에게 권고했다. 반역의 문제들이 부풀어 오르자, **가브리엘**의 **낙원** 응급 충고자는, 그런 완전하고 자유로운 기회가 모든 **노라티아덱** 피조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냉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에 싸인, 그런 모든 피조물이 전체 성좌에 대항해서 자기_방어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설명했다. **노라티아덱**의 존재들에게 **낙원**으로 상승하는 문들을 계속 열어놓기 위해서는, 반역이 충분히 발전하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존재의 편에서 태도를 완전히 결정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10.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는, 그의 세 번째 단독 선언으로서, 반역자들 및 반역의 가증한 모습을 반쯤 치료하거나, 소심하게 억압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감추려는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천사 무리는, 죄와 악의 전염병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빠른 기법으로서, 완전히 노출시키고 죄를_표현할 무제한의 기회를 주도록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1. **강력한 사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몸소 체험을 겪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인데, 이들로 구성된 예전의 필사자들의 응급 협의회가 그 동료들과 함께 **예루셈**에서 조직됐다. 그들은, 억압이라는 독단적 또는 즉결 방법이 시도된다면 적어도 세 배나 많은 존재가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했다. 결과를 이루기까지 100만 년

toward Lucifer, notwithstanding his being Lucifer's Creator-father, it was not in the province of the Creator Son to exercise summary jurisdiction over the apostate System Sovereign because he had not then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thereby attaining unqualified sovereignty of Nebadon.

54:5.7 (617.7) 6. The Ancients of Days could have immediately annihilated these rebels, but they seldom execute wrongdoers without a full hearing. In this instance they refused to overrule the Michael decisions.

54:5.8 (617.8) 7. It is evident that Immanuel counseled Michael to remain aloof from the rebels and allow rebellion to pursue a natural course of self-obliteration. And the wisdom of the Union of Days is the time reflection of the united wisdom of the Paradise Trinity.

54:5.9 (617.9) 8. The Faithful of Days on Edentia advised the Constellation Fathers to allow the rebels free course to the end that all sympathy for these evildoers should be the sooner uprooted in the hearts of every present and future citizen of Norlatiadek — every mortal, morontia, or spirit creature.

54:5.10 (617.10) 9. On Jerusem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counseled Gabriel to foster full opportunity for every living creature to mature a deliberate choice in those matters involved in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The issues of rebellion having been raised, the Paradise emergency adviser of Gabriel portrayed that, if such full and free opportunity were not given all Norlatiadek creatures, then would the Paradise quarantine against all such possible halfhearted or doubt-stricken creatures be extended in self-protection against the entire constellation. To keep open the Paradise doors of ascension to the beings of Norlatiadek, it wa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full development of rebellion and to insure the complete determination of attitude on the part of all beings in any way concerned therewith.

54:5.11 (617.11) 10.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issued as her third independent proclamation a mandate directing that nothing be done to half cure, cowardly suppress, or otherwise hide the hideous visage of rebels and rebellion. The angelic hosts were directed to work for full disclosure and unlimited opportunity for sin-expression as the quickest technique of achieving the perfect and final cure of the plague of evil and sin.

54:5.12 (618.1) 11. An emergency council of ex-mortals consisting of Mighty Messengers, glorified mortals who had had personal experience with like situations, together with their colleagues, was organized on Jerusem. They advised Gabriel that at least three times the number of beings would be led astray if arbitrary or summary methods of

이 소요되더라도, 반란이 충분하고 자연스런 과정을 밟도록 내버려두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한 것에 대해, **우버사** 조언자 단체가 전부 동의했다.

12. 심지어 시간세계의 한 우주에서도, 시간은 상대적이다: 평범한 기간의 인생을 산 어떤 **유란시아** 필사자가, 전_세계적 대혼란을 촉진시키는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를 또는 사흘 만에 체포되고 심문받고 집행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긴 시간으로 보이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시작된 **루시퍼**의 판결이 **유란시아** 햇수로 10만 년 동안 완결되지 못하더라도, **루시퍼**의 일생 기간에 비교한다면, 더 짧을지도 모른다.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우버사**의 관점에서 보면, **루시퍼**의 범죄는 범행을 저지른 지 2.5초 내에 재판에 회부됐다고 함으로써, 그 상대적 시간 경과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판결은 그 범죄 행위와 동시에 일어난다.

루시퍼 반역을 독단적으로 중지시키지 않은 데에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수의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설명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악이 그 자체의 도덕적 파산과 영적 사멸의 온전한 과정을 거치도록 허용한 48개의 이유를, 우리가 **우버사**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내게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 이유가 똑같이 많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6. 사랑의 승리

루시퍼 반역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반역을 취급하는 기법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입증이라는 점이, 모든 사려 깊은 사색가에게 분명하게 돼야만 할 것이다. 반역한 자들에게 확장된 사랑의 자비가, 많은 무고한 존재를 시험과 혼란에 말려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에 빠진 이 모든 인격체는, 온전히_지혜로운 **심판관**들이 그들의 운명을 공의로 판결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게 판결할 것임을, 확고히 믿어도 될 것이다.

지성 존재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든지, **창조주 아들**과 **낙원 아버지**, 두 분 다 사랑의 지배를 받으신다. 신성과 인간성의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다른 모든 국면의 **신격** 형태화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들과 반역에 대한--곧 죄와 죄인들에 대한--우주 통치자들의 태도의 여러 국면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낙원 창조주 아들**들은 모두 자비에따라 움직인다는 것 또한 상기해야 한다.

어떤 대가족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자녀 가운데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suppression were attempted. The entire Uversa corps of counselors concurred in advising Gabriel to permit the rebellion to take its full and natural course, even if it should require a million years to wind up the consequences.

54:5.13 (618.2) 12. Time, even in a universe of time, is relative: If a Urantia mortal of average length of life should commit a crime which precipitated world-wide pandemonium, and if he were apprehended, tried, and executed within two or three days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would it seem a long time to you? And yet that would be nearer a comparison with the length of Lucifer's life even if his adjudication, now begun, should not be completed for a hundred thousand Urantia years. The relative lapse of time from the viewpoint of Uversa, where the litigation is pending, could be indicated by saying that the crime of Lucifer was being brought to trial within two and a half seconds of its commission. From the Paradise viewpoint the adjudication is simultaneous with the enactment.

54:5.14 (618.3) There are an equal number of reasons for not arbitrarily stopping the Lucifer rebellion which would be partially comprehensible to you, but which I am not permitted to narrate. I may inform you that on Uversa we teach forty-eight reasons for permitting evil to run the full course of its own moral bankruptcy and spiritual extinction. I doubt not that there are just as many additional reasons not known to me.

6. THE TRIUMPH OF LOVE

54:6.1 (618.4) Whatever the difficulties evolutionary mortals may encounter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 Lucifer rebellion, it should be clear to all reflective thinkers that the technique of dealing with the rebels is a vindication of divine love. The loving mercy extended to the rebels does seem to have involved many innocent beings in trials and tribulations, but all these distraught personalities may securely depend upon the all-wise Judges to adjudicate their destinies in mercy as well as justice.

54:6.2 (618.5) In all their dealings with intelligent beings, both the Creator Son and his Paradise Father are love dominated.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many phases of the attitude of the universe rulers toward rebels and rebellion — sin and sinners — unless it be remembered that God as a Father takes precedence over all other phases of Deity manifestation in all the dealings of divinity with humanity. It should also be recalled that the Paradise Creator Sons are all mercy motivated.

54:6.3 (618.6) If an affectionate father of a large family chooses to show mercy to one of his children

로 한다면, 품행이 옳지 못한 이 자식에게 자비를 적용하는 일은, 행실이 올바른 다른 모든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결말은 필연적이며; 사랑스런 부모를 갖게 되고 가족 집단의 어떤 식구가 되는 실제 상황에서, 그런 위험성은 분리될 수 없다. 한 가족에서 각 식구는 나머지 모든 식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으며; 마찬가지로 각 식구는, 나머지 모든 식구의 잘못된 행실이 직접 일으키는 한때의_결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가족, 집단, 나라, 인종, 세계, 체계, 성좌, 및 우주들은 개별성을 갖는 연합 관계이며; 따라서 크든지 작든지, 그런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은, 관계되는 그 집단의 나머지 모든 구성원의 옳은 행위와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만 되는데: 너희 가족 가운데 어떤 식구, 어떤 동료 시민, 또는 동료 필사자의 죄, 심지어 그 체계 또는 다른 데서 있었던 반역의 악한 결과로 너희가 고통을 겪게 됐다면, --동역자, 동료, 또는 상관들의 비행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참아야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그런 시련이 일시적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영원히 확신하면서 안심해도 좋다. 집단 속에서 부정행위가 형제간에 미치는 이런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것도, 결코 너희의 영원한 가능성을 계속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낙원**으로 상승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너희의 신성한 권리를 조금도 뺏을 수 없다.

그리고 반역의 죄를 변함없이 뒤따르는, 이런 시련, 지연, 및 실망에는 보상이 있다. **루시퍼** 반역에서 가치 있고 거론할만한 많은 영향 중에서, 나는 오직, 그 필사 상승자들, 즉 **예루셈** 시민의 생애가 증진된 것에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인데, 그들은 죄의 궤변에 대항함으로써, 장차 **강력한 사자들**, 즉 나와 같은 계층의 동료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됐다. 그 악한 사건을 견뎌낸 모든 존재마다, 그로 인해 즉시, 자신의 행정상 지위를 향상시켰고,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진시켰다.

루시퍼 격변이 처음에는,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수그러들 줄 모르는 재난처럼 보였다. 차츰 이익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체계 시간으로 2만 5천 년(**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 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들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나오는 선한 결과가, 초래된 악과 맞먹을 정도가 됐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악의 총합은 그때까지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격리된 어떤 세계들에서만 증가됐던 반면, 유익한 영향은 우주와 연방우주를 통해 바깥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되고 확장됐다. **멜기세덱**들은 이제, **사타니아** 반역에서 발생하는 선한 것들이 전체 악의 합계보다 1,000배 이상에 달한다고 가르친다.

guilty of grievous wrongdoing, it may well be that the extension of mercy to this misbehaving child will work a temporary hardship upon all the other and well-behaved children. Such eventualities are inevitable; such a risk is inseparable from the reality situation of having a loving parent and of being a member of a family group. Each member of a family profits by the righteous conduct of every other member; likewise must each member suffer the immediate time-consequences of the misconduct of every other member. Families, groups, nations, races, worlds, systems, constellations, and universes are relationships of association which possess individuality; and therefore does every member of any such group, large or small, reap the benefits and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e rightdoing and the wrongdoing of all other members of the group concerned.

54:6.4 (619.1) But one thing should be made clear: If you are made to suffer the evil consequences of the sin of some member of your family, some fellow citizen or fellow mortal, even rebellion in the system or elsewhere — no matter what you may have to endure because of the wrongdoing of your associates, fellows, or superiors — you may rest secure in the eternal assurance that such tribulations are transient afflictions. None of these fraternal consequences of misbehavior in the group can ever jeopardize your eternal prospects or in the least degree deprive you of your divine right of Paradise ascension and God attainment.

54:6.5 (619.2) And there is compensation for these trials, delays, and disappointments which invariably accompany the sin of rebellion. Of the many valuable repercussions of the Lucifer rebellion which might be named, I will only call attention to the enhanced careers of those mortal ascenders, the Jerusem citizens, who, by withstanding the sophistries of sin, placed themselves in line for becoming future Mighty Messengers, fellows of my own order. Every being who stood the test of that evil episode thereby immediately advanced his administrative status and enhanced his spiritual worth.

54:6.6 (619.3) At first the Lucifer upheaval appeared to be an unmitigated calamity to the system and to the universe. Gradually benefits began to accrue. With the passing of twenty-five thousand years of system time (twenty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the Melchizedeks began to teach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Lucifer's folly had come to equal the evil incurred. The sum of evil had by that time become almost stationary, continuing to increase only on certain isolated worlds, while the beneficial repercussions continued to multiply and extend out through the universe and superuniverse, even to Havona. The Melchizedeks now teach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the Satania rebellion is more than a thousand times the sum of

그러나 잘못된 행위의 그런 색다르고 유익한 추수 결과는 오직, **에덴시아**에 있는 **성좌 아버지**들로부터,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에 이르기 까지, **루시퍼**보다 위에 있는 모든 분의 현명하고 신성하며 자비로운 태도 때문에 거둘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파생될 수 있는 필연적 선을 증진시켜 왔으며; 유죄를 선고받아야 할 악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법 완전히 발전했으므로, 온전히 지혜롭고 선견지명 있는 우주 통치자들이 점점 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시간을 확실히 연장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타니아** 반역자들의 체포와 재판은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많은 이유는 차치하고, 이 한 가지 소득만 해도, 왜 이 죄인들이 더 빨리 억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판결 받고 궤멸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시간에 매인 필사 지성체들은, 우주 직무에 대한 선견지명 있고 온전히 지혜로운 경영자들의 시간 지연을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는, 그들의 세계가 죄로 저주받지 않았다면, 진화하는 행성에서 모든 진화 필사자가 **낙원** 생애로 들어가기에 선택했을 것이라는 관념에 있다. 생존을 거부하는 역량은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생긴 것이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낙원** 생애를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자질을 항상 소유해 왔다.

생존을 체험하면서 상승하는 동안, 너희는 우주 개념들을 넓히고 의미와 가치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루시퍼**와 **사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반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왜 내버려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한, 궁극적 선이 한시적 악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더 잘 납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낙원**에 도달한 후에, 최고스라빔 철학자들이 우주를 조정하는 이 난해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될 때, 너희는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가 돼도, 나는 너희가 자신의 정신에 완전한 만족감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내가 우주 철학의 정상을 그렇게 성취했을 때에도 그렇지 못했다. 나는 연방우주에서 행정부 임무에 배정된 후에야, 이 복잡성들에 대해 충분한 납득을 성취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는 실제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시공우주 평형과 영적 철학 안에서 그런 다방면의 문제를 납득하기에 충분한 개념적 수용력을 획득했다. 너희가 **낙원**을 향하여 상승함에 따라서, 오직 이 체험 수용력이 증가된 후, 그리고 증진된 영적 통찰력을 성취한 후에야, 우주 경영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겨우 납득할 수 있음을, 너희는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시공우주 지혜는 시공우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다.

all the evil.

54:6.7 (619.4) But such an extraordinary and beneficent harvest of wrongdoing could only be brought about by the wise, divine, and merciful attitude of all of Lucifer's superiors, extending from the Constellation Fathers on Edentia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The passing of time has enhanced the consequential good to be derived from the Lucifer folly; and since the evil to be penalized was quite fully developed within a comparatively short time, it is apparent that the all-wise and farseeing universe rulers would be certain to extend the time in which to reap increasingly beneficial results. Regardless of the many additional reasons for delaying the apprehension and adjudication of the Satania rebels, this one gain would have been enough to explain why these sinners were not sooner interned, and why they have not been adjudicated and destroyed.

54:6.8 (619.5) Shortsighted and time-bound mortal minds should be slow to criticize the time delays of the farseeing and all-wise administrators of universe affairs.

54:6.9 (620.1) One error of human thinking respecting these problems consists in the idea that all evolutionary mortals on an evolving planet would choose to enter upon the Paradise career if sin had not cursed their world. The ability to decline survival does not date from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Mortal man has always possessed the endowment of freewill choice regarding the Paradise career.

54:6.10 (620.2) As you ascend in the survival experience, you will broaden your universe concepts and extend your horizon of meanings and values; and thus will you be able the better to understand why such beings as Lucifer and Satan are permitted to continue in rebellion. You will also better comprehend how ultimate (if not immediate) good can be derived from time-limited evil. After you attain Paradise, you will really be enlightened and comforted when you listen to the superaphic philosophers discuss and explain these profound problems of universe adjustment. But even then, I doubt that you will be fully satisfied in your own minds. At least I was not even when I had thus attained the acme of universe philosophy. I did not achieve a full comprehension of these complexities until after I had been assigned to administrative duties in the superuniverse, where by actual experience I have acquired conceptual capacity adequate for the comprehension of such many-sided problems in cosmic equity and spiritual philosophy. As you ascend Paradiseward, you will increasingly learn that many problematic featur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can only be comprehended subsequent to the acquirement of increased experiential capacity and to the

[지금은 **오르본톤** 연방우주 정부에 배속됐고,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문제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처음 체계 반역이 일어났을 때 체험을 거쳐 생존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achievement of enhanced spiritual insight. Cosmic wisdom is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cosmic situations.

54:6.11 (620.3)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of experiential survival in the first system rebellion in the universes of time now attached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Orvonton and acting in this matter by request of Gabriel of Salvington.]

제55편. 빛과 생명의 구체

⇨ 054

유랜시아 책

056 ⇨

II 부. 지방우주

제55편
빛과 생명의 구체

섹션

소개

1. 모론시아 성전
2. 죽음과 전환
3. 황금기
4. 경영의 재조정
5. 물질 발달의 전성기
6. 개별 필사자
7. 첫째 단계, 행성 단계
8. 둘째 단계, 체계 단계
9. 셋째 단계, 성좌 단계
10. 넷째 단계, 지방우주 단계
11. 소구역 및 대구역 단계
12. 일곱째 단계, 연방우주 단계

소개

빛과 생명의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진화로 달성하는 마지막 시대다. 원시인이 살던 초기 시대 이후로, 그런 인간거주 세계는, 이어지는 여러 행성 시대--곧 **행성 왕자** 이전 및 이후 시대, **아담** 이후 시대, **집정관 아들** 이후 시대, 및 증여 **아들** 이후 시대--를 지나왔다. 그 다음에 그런 세계는 최고조의 진화 달성, 즉 정착된 빛과 생명의 지위를 위해 준비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신성한 진리와 시공우주 지혜를 계속 확장해서 계시하는 것과 더불어, 연달아 행성 사명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종 행성 시대를 안정시킬 때, **교사 아들**들은 반드시 **찬란한 저녁별**들의 도움을 받고, **멜기세덱**들의 도움도 가끔 받는다.

교사 아들들의 최종 행성 사명이 끝날 때, 그들이 개시하는 이 빛과 생명의 시대는, 인간거주

PAPER 55

THE SPHERES OF LIGHT AND LIF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orontia Temple
2. Death and Translation
3. The Golden Ages
4. Administrative Readjustments
5. The Acme of Material Development
6. The Individual Mortal
7.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8. The Second or System Stage
9.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10.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11. The Minor and Major Sector Stages
12.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INTRODUCTION

55:0.1 (621.1) THE age of light and life is the final evolutionary attainment of a world of time and space. From the early times of primitive man, such an inhabited world has passed through the successive planetary ages — the pre- and the post-Planetary Prince ages, the post-Adamic age, the post-Magisterial Son age, and the postbestowal Son age. And then is such a world made ready for the culminating evolutionary attainment,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by the ministry of the successive planetary mission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with their ever-advancing revelations of divine truth and cosmic wisdom. In these endeavors the Teacher Sons enjoy the assistance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lways, and the Melchizedeks sometimes, in establishing the final planetary age.

55:0.2 (621.2) This era of light and life, inaugurated by the Teacher Sons at the conclusion of their final

세계들에서 무기한으로 계속된다. 안정된 지위에서 진보하는 각 단계는, **집정관 아들**들의 사법 조치에 따라서 일련의 섭리시대들로 분리되겠지만; 그런 모든 사법 조치는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이며, 어떤 면에서도 **행성** 사건의 과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연방우주의 주요 회로에서 실존하게 된 **행성**들만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지만, 우리가 아는 한, 빛과 생명에 정착한 이 세계들은 모두, 영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해서 내내, 계속 나아가도록 예정돼 있다.

진화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전개되는 데는 일곱 단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영과** 융합된 필사자 세계는, **조율사**와 융합하는 계열의 세계와 똑같은 노선을 따라서 진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빛과 생명의 이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단계, 행성 단계.
2. 둘째 단계, 체계 단계.
3. 셋째 단계, 성좌 단계.
4. 넷째 단계, 지방우주 단계.
5. 다섯째 단계, 소구역 단계.
6. 여섯째 단계, 대구역 단계.
7. 일곱째 단계, 연방우주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전 단계들은, 이 설명의 결론부분에서 우주 조직과 관련해 묘사되겠지만, 어떤 단계에 있는 **행성**의 가치기준이든지, 다른 세계들의 발달 또는 **행성**을 초월하는 우주 경영의 수준과는 아주 상관없이, 어떤 세계에서든지 달성될 수 있다.

1. 모론시아 성전

인간거주 세계의 수도에 모론시아 성전이 현존한다는 것은, 그런 구체가 빛과 생명의 정착된 시대에 들어갔다는 증명서다. 한 세계에서 **교사 아들**이 마지막 사명을 완료하고 떠나기 전에, 진화로 달성하는 이 마지막 시기의 막을 열면서, “거룩한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날을 주관한다. 빛과 생명의 시대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이 **행성**은, 반드시 그 **행성**의 **낙원** 중여 **아들**이 몸소 참석하는 영광을 누리는데, 그는 이 위대한 날을 직접 목격하려고 온다.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낙원**의 이 중여 **아들**은 오래근무한 **행성 왕자**를 새 **행성 주권자**로 선포하고, 그런 충실한 **라노난덱 아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고, **행성** 직무에 대한 권한을 확장시킨다. **체계 주권자**도 참석하여 이 선언(宣言)을 확증하는 연설을 한다.

planetary mission, continues indefinitely on the inhabited worlds. Each advancing stage of settled status may be segregated by the judicial actions of the Magisterial Sons into a succession of dispensations; but all such judicial actions are purely technical, in no way modifying the course of planetary events.

55:0.3 (621.3) Only those planets which attain existence in the main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 are assured of continuous survival, but as far as we know, thes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destined to go on throughout the eternal ages of all future time.

55:0.4 (621.4) There are seven stages in the unfoldment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on an evolutionary world, and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orlds of the Spirit-fused mortals evolve along lines identical with those of the Adjuster-fusion series. These seven stages of light and life are:

55:0.5 (621.5) 1.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55:0.6 (621.6) 2. The second or system stage.

55:0.7 (621.7) 3.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55:0.8 (621.8) 4.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55:0.9 (621.9) 5. The fifth or minor sector stage.

55:0.10 (621.10) 6. The sixth or major sector stage.

55:0.11 (621.11) 7.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55:0.12 (621.12) At the conclusion of this narrative these stages of advancing development are described as they relate to the universe organization, but the planetary values of any stage may be attained by any world quite independent of the development of other worlds or of the superplanetary levels of universe administration.

1. THE MORONTIA TEMPLE

55:1.1 (622.1) The presence of a morontia temple at the capital of an inhabited world is the certificate of the admission of such a sphere to the settled ages of light and life. Before the Teacher Sons leave a world at the conclusion of their terminal mission, they inaugurate this final epoch of evolutionary attainment; they preside on that day when the “holy temple comes down upon earth.” This event, signaling the daw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is always honored b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at planet, who comes to witness this great day. There in this temple of unparalleled beauty, this bestowal Son of Paradise proclaims the long-time Planetary Prince as the new Planetary Sovereign and invests such a faithful Lanonandek Son with new powers and

모론시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돼있다:가장 중심부는 **낙원** 중여 **아들**의 지성소{至聖所}다. 오른쪽에는, 전에 **행성 왕자**였던, 현직 **행성 주권자**의 자리가 있으며;이 **라노난덱 아들**은, 성전에 나타났을 때, 그 영역의 비교적 영적인 개인들의 눈에 보인다. 왼쪽에는 그 행성에 배속된 완결성취자들의 대리 우두머리의 자리가 있다.

행성의 성전이 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돼 왔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질적 물질도 체계 본부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 각 구조물은 체계 본부에서 축소형으로 만들어지고, 이승인된 계획을 그 후에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그 행성으로 가져온다. 그들은 여기서,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연합하여, 설계도에 따라서 모론시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모론시아 성전에는 약 30만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다. 이 건축물은, 경배, 연극, 또는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는 이용되지 않으며;그 행성의 특별한 예식{禮式}에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체계 주권자** 또는 **지고자**들과의 소통, 영 존재들의 인격 현존을 드러내도록 고안된 특별히 눈에 보이게 하는 예식, 그리고 조용히 시공우주를 묵상하는 것 등이다. 시공우주 철학 학교들이 졸업식 예행연습을 여기서 실시하며, 그 영역의 필사자들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에 대한, 그리고 기타 뛰어난 달성한 것들에 대한 행성 표창도 여기서 받는다.

그런 모론시아 성전은 또한, 살아있는 필사자들을 모론시아 실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격하기 위한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번쩍이며 태워버리는 영광의 불꽃에도 파괴되지 않는 것은, 전환시키는 이 성전이 모론시아 물질로 구성돼있기 때문인데, 이 불꽃은 신성한 **조율사**와 최종 융합을 여기서 체험하는 그런 필사자의 육체를 아주 완전하게 없애버린다. 이 이별{離別}의 심광이 어떤 큰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전환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론시아 생명 보조 성소{聖所}들이 그 행성의 여러 다른 지역에 마련된다. 나는 얼마 전에, 25개의 모론시아 성소가 작동하는, 먼 북쪽에 있는 어떤 세계에 머문 적이 있다.

정착되기_이전의 세계, 즉 모론시아 성전이 없는 행성에서는, 이 융합 심광이 행성 대기{大氣}에서 여러 번 일어나는데, 중도 피조물과 물리 통제관들이 전환 후보자의 물질 육신을 행성 대기로 들어올린다.

extended authority over planetary affairs. The System Sovereign is also present and speaks in confirmation of these pronouncements.

55:1.2 (622.2) A morontia temple has three parts: Centermost is the sanctuary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n the right is the seat of the former Planetary Prince, now Planetary Sovereign; and when present in the temple, this Lanonandek Son is visible to the more spiritual individuals of the realm. On the left is the seat of the acting chief of finalizers attached to the planet.

55:1.3 (622.3) Although the planetary temples have been spoken of as “coming down from heaven,” in reality no actual material is transported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The architecture of each is worked out in miniature on the system capital,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subsequently bring these approved plans to the planet. Here, in association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y proceed to build the morontia temple according to specifications.

55:1.4 (622.4) The average morontia temple seats about three hundred thousand spectators. These edifices are not used for worship, play, or for receiving broadcasts; they are devoted to the special ceremonies of the planet, such as: communications with the System Sovereign or with the Most Highs, special visualization ceremonies designed to reveal the personality presence of spirit beings, and silent cosmic contemplation. The schools of cosmic philosophy here conduct their graduation exercises, and here also do the mortals of the realm receive planetary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of high social service and for other outstanding attainments.

55:1.5 (622.5) Such a morontia temple also serves as the place of assembly for witnessing the translation of living mortals to the morontia existence. It is because the translation temple is composed of morontia material that it is not destroyed by the blazing glory of the consuming fire which so completely obliterates the physical bodies of those mortals who therein experience final fusion with their divine Adjusters. On a large world these departure flares are almost continuous, and as the number of translations increases, subsidiary morontia life shrines are provided in different areas of the planet. Not long since I sojourned on a world in the far north whereon twenty-five morontia shrines were functioning.

55:1.6 (622.6) On presettled worlds, planets without morontia temples, these fusion flashes many times occur in the planetary atmosphere, where the material body of a translation candidate is elevated by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2. 죽음과 전환

육신의 자연사는 필사자에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진보된 진화 존재들, 즉 빛과 생명이라는 최종 시대에 실존하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시민은 죽지 않으며; 그들은 육신 속의 생애로부터 모른시아 실존으로 직접 전환된다.

물질 생애로부터 모른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이 체험은--즉 불멸하는 혼과 내주하는 **조율사**의 융합은-- 행성의 진화 발전에 비례해서 빈도가 증가한다. 처음에는 각 시대에 오직 소수의 필사자만이, 전환될 수 있는 영적 진보 수준에 도달하지만, 이어지는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진보하는 이 필사자의 길어지는 생애가 마감되기 전에 점점 더 많은 **조율사** 융합이 일어나며; **교사 아들**들이 마지막 사명으로 오는 시대가 되면, 이 뛰어난 필사자들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자연사에서 제외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 속에서 오래 지날수록, 중도 피조물 또는 그 동역자들은, 합동이 예상되는 상태에 혼과 **조율사**가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며, 이를 운명 수호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은 다시, 이 필사자가 활동하고 있을 관할 지역의 완결 성취자 집단에게 이 문제를 통보하며; 그 다음에는 그런 필사자에게, 모든 행성 임무에서 물러나고, 그가 기원된 세계에 작별을 고하고, **행성 주권자**의 내부 성전으로 가서, 진화하는 물질적 영역으로부터 영_이전{以前}에 진보하는 모른시아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모른시아 전환, 즉 변환 섬광을 거기서 기다리라는, **행성 주권자**의 소집명령이 떨어진다.

그런 융합 후보자의 가족, 친구들, 및 일하는 집단이 모른시아 성전에 모이게 됐을 때, 그들은 융합 후보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앙 무대 주변에 흠어져 있고, 그동안에 모여든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생명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에 나타나는 에너지 작용으로부터 물질 필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연{絶緣}시키는 천상의 인격체들로 이뤄진 한 집단이 배치되는데, 이 섬광은 상승 후보자를 물질 육신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을 벗어나는 자에게 자연사가 미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그런 진화 필사자에게 미친다.

많은 융합 후보자들이 넓은 성전에 동시에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영적 감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상승을 목격하기 위해서 필사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필사자들이 자신의 시신을 지상의 원소 세계로 내줘야만 했던 초기 시대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인간의 진화에서 초기 시대의 특징인, 눈물로 얼룩지고 비탄에 젖은 광경들은, 장엄하게 타오르고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 영적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벗어나

2. DEATH AND TRANSLATION

55:2.1 (623.1) Natural, physical death is not a mortal inevitability. The majority of advanced evolutionary beings, citizens on worlds existing in the final era of light and life, do not die; they are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life in the flesh to the morontia existence.

55:2.2 (623.2) This experience of translation from the material life to the morontia state — fusion of the immortal soul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 increases in frequency commensurate with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the planet. At first only a few mortals in each age attain translation levels of spiritual progress, but with the onset of the successive ages of the Teacher Sons, more and more Adjuster fusions occur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lengthening lives of these progressing mortals; and by the time of the terminal mission of the Teacher Sons,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these superb mortals are exempt from natural death.

55:2.3 (623.3) Farther along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 midway creatures or their associates sense the approaching status of probable soul-Adjuster union and signify this to the destiny guardians, who in turn communicate these matters to the finaliter group under whose jurisdiction this mortal may be functioning; then there is issued the summons of the Planetary Sovereign for such a mortal to resign all planetary duties, bid farewell to the world of his origin, and repair to the inner temple of the Planetary Sovereign, there to await morontia transit, the translation flash, from the material domain of evolution to the morontia level of prespirit progression.

55:2.4 (623.4) When the family, friends, and working group of such a fusion candidate have forgathered in the morontia temple, they are distributed around the central stage whereon the fusion candidates are resting, meantime freely conversing with their assembled friends. A circle of intervening celestial personalities is arranged to protect the material mortals from the action of the energies manifest at the instant of the “life flash” which delivers the ascension candidate from the bonds of material flesh, thereby doing for such an evolutionary mortal everything that natural death does for those who are thereby delivered from the flesh.

55:2.5 (623.5) Many fusion candidates may be assembled in the spacious temple at the same time. And what a beautiful occasion when mortals thus forgather to witness the ascension of their loved ones in spiritual flames, and what a contrast to those earlier ages when mortals must commit their dead to the embrace of the terrestrial elements! The scenes of weeping and wailing characteristic of earlier epochs of human evolution are now replaced by ecstatic joy and the sublimest

때, **하나님**을 아는 이 필사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시적 작별을 고할 때, 이제 무아지경의 기쁨과 가장 장엄한 감격으로 대치된다. 빛과 생명이 정착된 세계에서는, “장례식”이 최고의 기쁨, 심오한 만족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소망이 넘치는 행사다.

진보하는 이런 필사자의 혼은, 신앙, 소망, 및 확신으로 점점 더 채워진다. 전환시키는 성소 주변에 모인 그들에게 스며드는 활기는, 자기 집단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졸업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게 어떤 큰 상이 수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친구 및 친척들의 활기와 흡사하다. 아직 많이 진보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바로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한 태도로 자연사를 바라보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확실히 유익할 것이다.

융합하는 심광이 있는 후에, 필사자 참관인들은 전환된 동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조울사**가 운반함으로써 처리된 그런 전환된 혼은, 적합한 모론시아_훈련 세계의 부활실로 직접 옮겨진다. 살아있는 인간이 모론시아 세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된 이 진행사항은, 빛과 생명에 처음 정착했던 그날에 그런 세계에 배정된 천사장의 감독을 받는다.

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를 달성할 때가 되면, 절반 이상의 필사자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됨으로써 행성을 떠난다. 그런 죽음의 감소는 연이어 계속되지만, 나는 인간거주 세계들이 포함된 어떤 체계도, 심지어 생명 속에 오랫동안 정착했다라도, 육신의 족쇄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연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행성의 진화가 그런 높은 상태로 균일하게 도달하기까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_훈련 세계들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구체로서 계속 이바지해야 한다.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상태는, 정착된 행성 생명의 일곱째 단계를 잇는 시대에, 까마득히 먼 훗날에 달성될지도 모르겠다.

정착된 구체의 개화기(開花期)에 전환되는 혼들은 맨션 세계들을 거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체계 또는 성좌의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학생으로 머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론시아 생애의 어떤 초기 국면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 실존으로부터 준영{準靈} 상태까지, 모론시아의 과도기를 거의 피하는 상승 필사자일 뿐이다. 상승하는 생애에서 **아들**에게 점유된 그런 필사자들의 초기 체험은, 우주 본부의 진보 세계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빙론**의 이 학습 세계들로부터, 자신이 그냥 지나친 바로 그 세계들로 선생으로서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확립된 필사자 상승

enthusiasm as these God-knowing mortals bid their loved ones a transient farewell as they are removed from their material associations by the spiritual fires of consuming grandeur and ascending glory. On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funerals” are occasions of supreme joy, profound satisfaction, and inexpressible hope.

55:2.6 (623.6) The souls of these progressing mortals are increasingly filled with faith, hope, and assurance. The spirit permeating those gathered around the translation shrine resembles that of the joyful friends and relatives who might assemble at a graduating exercise for one of their group, or who might come together to witness the conferring of some great honor upon one of their number. And it would be decidedly helpful if less advanced mortals could only learn to view natural death with something of this same cheerfulness and lightheartedness.

55:2.7 (624.1) Mortal observers can see nothing of their translated associates subsequent to the fusion flash. Such translated souls proceed by Adjuster transit direct to the resurrection hall of the appropriate morontia-training world. These transactions concerned with the translation of living human beings to the morontia world are supervised by an archangel who was assigned to such a world on the day when it was first settled in light and life.

55:2.8 (624.2) By the time a world attains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more than half the mortals leave the planet by translation from among the living. Such diminishment of death continues on and on, but I know of no system whose inhabited worlds, even though long settled in life, are entirely free from natural death as the technique of escape from the bonds of flesh. And until such a high state of planetary evolution is uniformly attained, the morontia-training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must continue in service as educational and cultural spheres for the evolving morontia progressors. The elimination of death is theoretically possible, but it has not yet occurred according to my observation. Perhaps such a status may be attained during the faraway stretches of the succeeding epochs of the seventh stage of settled planetary life.

55:2.9 (624.3) The translated souls of the flowering ages of the settled spheres do not pass through the mansion worlds. Neither do they sojourn, as students, on the morontia worlds of the system or constellation. They do not pass through any of the earlier phases of morontia life. They are the only ascending mortals who so nearly escape the morontia transition from material existence to semispirit status. The initial experience of such *Son-seized* mortals in the ascension career is in the services of the progression worlds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from these study

노선을 따라서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너희가 진보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행성을 방문할 수 있다면, 맨션 세계 및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차별해서 받도록 마련한 이유를 빨리 파악할 것이다. 그런 고도로 진화된 세계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쳐가는 존재들은, **유란시아** 같은 혼란스럽고 뒤쳐진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보통 필사자보다 훨씬 앞서서 **낙원** 상승을 다시 시작하도록 준비돼 있음을, 너희는 빨리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행성에서 어떤 수준을 달성하고 모론시아 세계들로 상승했는지, 그들이 태어난 행성의 발전 상태 때문에 거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이자 학생으로서 체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일곱 맨션 세계가 그들에게 제공한다.

우주는, 상승하는 체험에 필수적인 것을 어떤 상승자든지 하나도 빼가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이 표준화 기법을 틀림없이 적용한다.

3. 황금기

이 빛과 생명의 시대에, 세계는 **행성 주권자**의 아버지다운 통치 아래 점점 더 번영한다. 이때가 되면, 세상은 한 언어와 한 종교, 그리고 보통구체의 경우에는 한 인종의 추진력 아래서 진보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준비가 잘된 병원, 즉 환자를 돌보기 위한 건물들이 여전히 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나이 들어 생기는 노쇠함과 고령의 부조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질병 문제가 여전히 있다. 질병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으며, 또한 육상 동물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지만; 그런 세상은, **행성 왕자** 이전(以前) 시대에 원시인이 살던 초기 시절과 비교하면 **낙원** 같다. 너희가 이런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행성으로 갑자기 옮겨질 수 있다면--너희는 본능적으로 그 세계를 땅에 있는 천국으로 묘사할 것이다.

물질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간 정부는, 비교적 진보하고 완전해지는 이 시대 내내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내가 최근에 방문한 바 있는, 빛과 생명의 첫째 단계에 있는 어떤 세계의 공공 활동은, 십일조(十一租)라는 방법으로 재력을 마련한다. 모든 성인 노동자는--그리고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수입이나 이자소득에서 10퍼센트를 공공 기금에 납부했고, 다음과 같이 지출했다:

worlds of Salvington they go back as teachers to the very worlds they passed by, subsequently going on inward to Paradise by the established route of mortal ascension.

55:2.10 (624.4) Could you but visit a planet in an advanced stage of development, you would quickly grasp the reasons for providing for the differential reception of ascending mortals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You would readily understand that beings passing on from such highly evolved spheres are prepared to resume their Paradise ascent far in advance of the average mortal arriving from a disordered and backward world like Urantia.

55:2.11 (624.5) No matter from what level of planetary attainment human beings may ascend to the morontia worlds, the seven mansion spheres afford them ample opportunity to gain in experience as teacher-students all of everything which they failed to pass through because of the advanced status of their native planets.

55:2.12 (624.6) The universe is unfailing in the application of these equalizing techniques designed to insure that no ascender shall be deprived of aught which is essential to his ascension experience.

3. THE GOLDEN AGES

55:3.1 (624.7) During this age of light and life the world increasingly prospers under the fatherly rule of the Planetary Sovereign. By this time the worlds are progressing under the momentum of one language, one religion, and, on normal spheres, one race. But this age is not perfect. These worlds still have well-appointed hospitals, homes for the care of the sick. There still remain the problems of caring for accidental injuries and the inescapable infirmities attendant upon the decrepitude of old age and the disorders of senility. Disease has not been entirely vanquished, neither have the earth animals been subdued in perfection; but such worlds are like Paradise in comparison with the early times of primitive man during the pre-Planetary Prince age. You would instinctively describe such a realm — could you be suddenly transported to a planet in this stage of development — as heaven on earth.

55:3.2 (625.1) Human government in the conduct of material affairs continues to function throughout this age of relative progress and perfection. The public activities of a world in the first stage of light and life which I recently visited were financed by the tithing technique. Every adult worker — and all able-bodied citizens worked at something — paid ten per cent of his income or increase to the public treasury, and it was disbursed as follows:

1. 3퍼센트는 진리를--곧 과학, 교육, 철학을--증진하는 데 사용됐다.

2. 3퍼센트는 미{美}에--곧 연극, 사교적인 여가, 예술에--지불됐다.

3. 3퍼센트는 선{善}에--곧 사회 봉사, 이타주의, 종교에--사용됐다.

4. 1퍼센트는, 사고, 질병, 노년, 또는 예방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노동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보험금에 배정됐다.

이 행성의 천연 자원은, 사회의 소유물, 즉 공동체의 자산으로 경영됐다.

이 세계에서는 시민{市民}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가 “최상의 봉사”라는 종류였는데, 일찍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유일하게 수여하는 표창장이다. 이 상은, 초물질적 발견 또는 행성의 어떤 국면의 사회 봉사에서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됐다.

대다수의 사회 및 경영 직책을 남녀가 공동으로 차지한다. 대부분의 가르침 역시 합동으로 행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법적 직무도 비슷한 연합된 쌍들이 이행했다.

뛰어난 이 세계들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한 가족의 자녀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나이가 비슷할 때, 자녀들은 서로 훈련시키는 데 훨씬 더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는,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통달을 다양하게 성취하는 진보된 범위와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 체제로 인해 훌륭하게 훈련된다. 영화롭게 된 그런 구체들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많은 악을 보이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죄와 의{義} 사이를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

그럼에도 그런 진보된 진화 행성에서 필사자 실존에게 따르는 어떤 불가피한 형벌이 있다. 정착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셋째 단계를 넘어서 진보할 때, 모든 상승자는, 소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초기 단계의 진화를 거치고 있는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일시적 임무를 부여받게 돼있다.

이어지는 이 여러 시대는 각각, 행성이 달성하는 모든 국면에서 진보하는 업적을 나타낸다. 빛의 초기 시대에, 진리의 계시가 온갖 우주의 활동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며, 한편 둘째 시대에 **신격**에 관한 연구는, **칠중 하나님**의 첫 수준, 즉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 사명, 사역, 관계, 기원, 및 운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통달하려는 시도다.

55:3.3 (625.2) 1. Three per cent was expended in the promotion of truth — science, education, and philosophy.

55:3.4 (625.3) 2. Three per cent was devoted to beauty — play, social leisure, and art.

55:3.5 (625.4) 3. Three per cent was dedicated to goodness — social service, altruism, and religion.

55:3.6 (625.5) 4. One per cent was assigned to the insurance reserves against the risk of incapacity for labor resultant from accident, disease, old age, or unpreventable disasters.

55:3.7 (625.6) The natural resources of this planet were administered as social possessions, community property.

55:3.8 (625.7) On this world the highest honor conferred upon a citizen was the order of “supreme service,” being the only degree of recognition ever to be granted in the morontia temple. This recognition was bestowed upon those who had long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ome phase of supermaterial discovery or planetary social service.

55:3.9 (625.8) The majority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posts were held jointly by men and women. Most of the teaching was also done jointly; likewise all judicial trusts were discharged by similar associated couples.

55:3.10 (625.9) On these superb worlds the childbearing period is not greatly prolonged. It is not best for too many years to intervene between the ages of a family of children. When close together in age, children are able to contribute much more to their mutual training. And on these worlds they are magnificently trained by the competitive systems of keen striving in the advanced domains and divisions of diverse achievement in the master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Never fear but that even such glorified spheres present plenty of evil, real and potential, which is stimulative of the choosing between truth and error, good and evil, sin and righteousness.

55:3.11 (625.10) Nevertheless, there is a certain, inevitable penalty attaching to mortal existence on such advanced evolutionary planets. When a settled world progresses beyond the third stage of light and life, all ascenders are destined, before attaining the minor sector, to receive some sort of transient assignment on a planet passing through the earlier stages of evolution.

55:3.12 (626.1) Each of these successive ages represents advancing achievements in all phases of planetary attainment. In the initial age of light the revelation of truth was enlarged to embrace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le the Deity study of the second age is the attempt to master the protean concept of the nature, mission,

유란시아 크기의 행성은, 매우 잘 정착됐을 때, 약 100개의 보조경영 중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영자 가운데 하나가 이 보조 중심지를 주관할 것이다:

1. 통치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보좌관으로서 행동하도록 체계 본부에서 데려온 젊은 **물질 아들**과 **딸**.

2. 이 책임 및 기타 비슷한 책임을 위해 어떤 세계들에서 출산된, **행성 왕자**의 약간필사 참모진이 낳은 자손.

3. **아담**과 **이브**의 직계 행성 자손.

4. 물질화되고 인간화된 중도 피조물.

5. **조율사**와 융합하는 신분의 필사자이고, 그들 자신이 간청해서, 우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격화된 조율사**의 명령에 따라, 그 행성에서 어떤 중요한 경영 지위를 계속 갖도록, 일시적으로 변환에서 제외된 자들.

6. 행성의 여러 경영 학교에서 특별하게 훈련된 필사자이고, 모론시아 성전에서 최상의 봉사에 임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받아온 자들.

7. 올바르게 자격을 갖춘 세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어떤 선출된 위원회이고, 특별한 행성 구역에 있어야만 될 어떤 분명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에 따라서, **행성 주권자**의 지시 아래, 시민이 이따금 선택하는 자들.

빛과 생명의 높은 행성 운명을 달성하는 문제에서 **유란시아**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는, 질병, 퇴화, 전쟁, 다색 인종들, 그리고 복잡한 언어 등의 문제에 내포돼 있다.

어떤 진화 세계든지, 그 세계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철학을 성취하기 전에는, 정착되는 첫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기를 바랄 수 없다. 하나의 인종이 되는 것이 그런 성취를 크게 촉진시키겠지만, **유란시아**에 많은 민족이 있다고 해서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제되지는 않는다.

4. 경영의 재조정

이어지는 정착된 실존 단계들에서, 인간거주 세계들은 자원하는 **완결성취 단체**의 현명하고 연민의 정으로 가득한 경영 아래서 놀라운 정도로 진보하는데, 이들은 **낙원**에 도달한 상승자이고,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

ministry, associations, origin, and destiny of the Creator Sons, the first level of God the Sevenfold.

55:3.13 (626.2) A planet the size of Urantia, when fairly well settled, would have about one hundred subadministrative centers. These subordinate centers would be presided over by one of the following groups of qualified administrators:

55:3.14 (626.3) 1. Young Material Sons and Daughters brought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to act as assistants to the ruling Adam and Eve.

55:3.15 (626.4) 2. The progeny of the semimort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who were procreated on certain worlds for this and other similar responsibilities.

55:3.16 (626.5) 3. The direct planetary progeny of Adam and Eve.

55:3.17 (626.6) 4. Materialized and humanized midway creatures.

55:3.18 (626.7) 5. Mortals of Adjuster-fusion status who, upon their own petition, are temporarily exempted from translation by the order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universe chieftainship in order that they may continue on the planet in certain important administrative posts.

55:3.19 (626.8) 6. Specially trained mortals of the planetary schools of administration who have also received the order of supreme service of the morontia temple.

55:3.20 (626.9) 7. Certain elective commissions of three properly qualified citizens who are sometimes chosen by the citizenry by direction of the Planetary Sovereign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ability to accomplish some definite task which is needful in that particular planetary sector.

55:3.21 (626.10) The great handicap confronting Urantia in the matter of attaining the high planetary destiny of light and life is embraced in the problems of disease, degeneracy, war, multicolored races, and multilingualism.

55:3.22 (626.11) No evolutionary world can hope to progress beyond the first stage of settledness in light until it has achieved one language, one religion, and one philosophy. Being of one race greatly facilitates such achievement, but the many peoples of Urantia do not preclude the attainment of higher stages.

4. ADMINISTRATIVE READJUSTMENTS

55:4.1 (626.12) In the successive stages of settled existence the inhabited worlds make marvelous progress under the wise and sympathetic administration of the volunteer Corps of the Finality, ascenders of Paradise attainment who

아왔다. 이 완결성취자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협동하여 활동하지만, 모론시아 성전이 땅 위에 나타나기 전에는 실제로 세상 직무에 참여하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완결성취 단체의 행성 사역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천상의 무리가 철수한다. 그러나 운명의 스랍 수호자들은, 빛 가운데서 진보하는 필사자들에게 계속하여 몸소 사역하며; 정착된 시절 내내, 정말로 그렇게 오는 천사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는 행성에서 누리는 생애 동안에, 점점 더 큰 무리의 인간이 동등한 필사자 달성의 셋째 시공우주 궤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경영 조정들 중에서 첫째 조정에 불과한데, 인간거주 세계가 첫째 단계에서 일곱째까지 정착된 실존을 거치는 동안, 점점 더 찬란한 달성을 이루는 이어지는 시대들이 펼쳐지면서, 그런 경영 조정들이 뒤따른다.

1. **빛과 생명의 첫째 단계.** 정착된 초기 단계에 있는 세계를 다음과 같은 세 명의 통치자가 경영한다:

a. **행성 주권자**, 그는 상담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충고를 곧 받게 돼있고, 그 행성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들**들로 이뤄진 마지막 단체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b. 행성 완결성취자 단체의 우두머리.

c. **아담**과 **이브**, 이들은 **왕자_주권자** 및 완결성취자들의 우두머리로 이뤄진 이중 지도 체제를 통합하는 자로서, 함께 활약한다.

고양되고 해방된 중도 피조물이 스랍 수호자와 완결성취자들을 위해 통역관으로서 활동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마지막 사명에서 행하는 마지막 조치 가운데 하나는, 그 영역의 중도자들을 해방시키고 행성에서 진보된 지위로 진급(또는 회복)시키는 것인데, 정착된 구체의 새로운 경영 체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들을 배치한다. 초기 **아담** 체제에 속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사촌들을, 필사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인간 시력 범위 내에서 이미 조성됐다. 이것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행성 기능이 증대된 것과 관련하여, 자연 과학의 최종 발견으로 가능하게 된다.

체계 주권자는, 정착된 첫째 단계 이후에, **생명 운반자**와 물리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아 모론시아에서 인간화 하도록 중도 피조물을 어느 때든지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사고 조율사**를 받은 후에 **낙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셋째 및 그 이후 단계들에서, 주로 완결성취자들을 위한 접촉 인격체로서, 중도자들 가운데

have come back to minister to their brethren in the flesh. These finaliters are active in co-operation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but they do not begin their real participation in world affairs until the morontia temple appears on earth.

55:4.2 (626.13) Upon the formal inauguration of the planetary ministry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 majority of the celestial hosts withdraw. But the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continue their personal ministry to the progressing mortals in light; indeed such angels come in ever-increasing numbers throughout the settled ages since larger and larger groups of human beings reach the third cosmic circle of co-ordinate mortal attainment during the planetary life span.

55:4.3 (627.1) This is merely the first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ve adjustments which attend the unfolding of the successive ages of increasingly brilliant attainment on the inhabited worlds as they pass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stage of settled existence.

55:4.4 (627.2) 1. *The first stage of light and life.* A world in this initial settled stage is being administered by three rulers:

55:4.5 (627.3) a. The Planetary Sovereign, presently to be advised by a counseling Trinity Teacher Son, in all probability the chief of the terminal corps of such Sons to function on the planet.

55:4.6 (627.4) b. The chief of the planetary corps of finaliters.

55:4.7 (627.5) c. Adam and Eve, who function jointly as the unifiers of the dual leadership of the Prince-Sovereign and the chief of finaliters.

55:4.8 (627.6) Acting as interpreters for the seraphic guardians and the finaliters are the exalted and liberated midway creatures. One of the last act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on their terminal mission is to liberate the midwayers of the realm and to promote (or restore) them to advanced planetary status, assigning them to responsible places in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settled sphere. Such changes have already been made in the range of human vision as enable mortals to recognize these heretofore invisible cousins of the early Adamic regime.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final discoveries of physical science in liaison with the enlarged planetary func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5:4.9 (627.7) The System Sovereign has authority to release midway creatures any time after the first settled stage so that they may humanize in the morontia by the aid of the Life Carri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after receiving Thought Adjusters, start out on their Paradise ascension.

55:4.10 (627.8) In the third and subsequent stages, some of the midwayers are still functioning, chiefly

일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빛과 생명의 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계층의 연락 사역자들이 중도자 대부분을 대체하며;그들 가운데 극소수는 빛의 넷째 단계가 지난 뒤에도 계속 남는다. 일곱째 단계는, 어떤 우주 피조물을 대신해서 근무하려고, **낙원**으로부터 첫째 유한절대 사역자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 빛과 생명의 둘째 단계. **생명 운반자**가 도착하는 것이, 이 시기가 세계들에 임했음을 알려주는데, 그 **생명 운반자**는, 필사자 인종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더 수고한다는 점에서, 행성 통치자들에게 자발적 충고자가 된다. 그리하여 **생명 운반자**들은 --육신적, 사회적, 및 경제적 면에서-- 인간 종족의 더 많은 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감독은, 지적 본성, 철학적 본성, 시공우주의 본성, 그리고 영적 본성의 잠재력이 열등한, 뒤처지고 지속하는 잔재들을 과감히 제거시킴으로써, 필사자의 혈통을 더욱 정화시키는 일로 확장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생명을 계획하고 심는 자들은, **물질 아들**과 **딸**들에게 충고할 자격이 충분하며, 모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진화 인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

둘째 단계부터 계속해서, 정착된 한 행성의 경력 내내, **교사 아들**들은 완결성취자들에게 조언자로서 근무한다.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배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자로서 봉사하며;**체계 주권자**의 동의로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 충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오로지 완결성취자 단체와 함께 근무한다.

3. 빛과 생명의 셋째 단계. 이 시기 동안에, 인간거주 세계는, **태고 항존자**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칠중 하나님**의 둘째 국면에 도달하며, 이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대표자들은 행성의 경영 당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각 시대에, 완결성취자들은 계속_증가하는 수용력으로 활약한다. 완결성취자, **저녁 별**(곧 최고천사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사이에 긴밀한 실무 통신수단이 존재한다.

이 시대 또는 뒤따르는 시대 동안, 4인조의 돌보는_영이 보조하는 **교사 아들**이, 선출되는 필사자 최고 행정관에게 배속되는데, 이 행정관은 세상 직무에 대한 공동 경영자로서 **행성 주권자**와 이때 연합한다. 이 필사 최고 행정관들은 행성 시간으로 25년 동안 근무하며, 바로 이런 새로운 진전 때문에,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이어지는 시절에 오랜 세월 동안 배정됐던 세계로부터 확실히 풀려나기 쉽게 된다.

4인조의 돌보는_영은, 구체의 스랍 우두머리,

as contact personalities for the finaliters, but as each stage of light and life is entered, new orders of liaison ministers largely replace the midwayers; very few of them ever remain beyond the fourth stage of light. The seventh stage will witness the coming of the first absonite ministers from Paradise to serve in the places of certain universe creatures.

55:4.11 (627.9) 2. The second stage of light and life.

This epoch is signaled on the worlds by the arrival of a Life Carrier who becomes the volunteer adviser of the planetary rulers regarding the further efforts to purify and stabilize the mortal race. Thus do the Life Carri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human race — phys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then they extend their supervision to the further purification of the mortal stock by the drastic elimination of the retarded and persisting remnants of inferior potential of an intellectu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nature. Those who design and plant life on an inhabited world are fully competent to advise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who have full and unquestioned authority to purge the evolving race of all detrimental influences.

55:4.12 (627.10) From the second stage on throughout

the career of a settled planet the Teacher Sons serve as counselors to the finaliters. During such missions they serve as volunteers and not by assignment; and they serve exclusively with the finaliter corps except that, upon the consent of the System Sovereign, they may be had as advisers to the Planetary Adam and Eve.

55:4.13 (628.1) 3. The third stage of light and life.

During this epoch the inhabited worlds arrive at a new appreci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the second phase of God the Sevenfold,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superuniverse rulers enter into new relationships with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55:4.14 (628.2) In each succeeding age of settled

existence the finaliters function in ever-increasing capacities. There exists a close working connection between the finaliters, the Evening Stars (the superangel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55:4.15 (628.3) During this or the following age a

Teacher Son, assisted by the ministering-spirit quartette, becomes attached to the elective mortal chief executive, who now becomes associated with the Planetary Sovereign as joint administrator of world affairs. These mortal chief executives serve for twenty-five years of planetary time, and it is this new development that makes it easy for the Planetary Adam and Eve to secure release from their world of long-time assignment during the following ages.

55:4.16 (628.4) The ministering-spirit quartettes

연방우주 제2스랍 조인자, 전환 천사장, 그리고 체계 본부에 머무는 **배정된 파수꾼**의 개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全)스라빔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충고자들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조언을 제시하지 않는다.

4.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 그 세계들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새로운 역할을 띠고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과 매우 오랫동안 연합했던,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의 보조를 받아, 이제 **행성 주권자** 및 그 동역자들에게 자발적 조인자와 충고자로서 그 세계들로 온다. 그런 쌍은--곧 **낙원 하보나**에서 삼일체된 아들 및 상승자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은-- 행성 통치자들을 고귀하게 섬길 수 있는, 차이 나는 우주 관점과 다양한 개인 체험을 보여준다.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이 시대 이후에 언제든지, 자신의 **낙원**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 행성 의무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주권자 창조주 아들**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아니면 점점 더 영적인 사회에 새롭게 출현하는 계층의 지휘자로서 행성에 남을 수 있는데, 그 영적 사회는, **찬란한 저녁별**들이 묘사한 완결성취자들의 철학적 교훈을 남득하려고 애쓰는 진보된 필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란한 저녁별**들은, 연방우주의 본부에서 온 제2스라빔과 쌍을 이뤄 공동으로 일하도록 이제 이런 세계에 배정된다.

완결성취자들은, 사회의 새로운 초물질적인 활동을--곧 사회 활동, 문화 활동, 철학 활동, 시공 우주 활동, 및 영적 활동을-- 개시하는 데 주로 참여한다. 우리가 식별하는 한, 그들은 진화로 안정된 일곱째 시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인데, 아마 그때, 외부 공간에서 사역하려고 나갈지도 모르며; 그래서 우리는 **낙원**으로부터 오는 유한절대 존재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치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5. **빛과 생명의 다섯째 단계.** 정착된 실존에 대한 이 단계의 재조정은, 거의 완전히 물리적 분야에 관한 것이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주요 관심사다.

6. **빛과 생명의 여섯째 단계는,** 그 영역에서 정신 회로의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한다. 시공우주의 지혜는, 정신이 우주에게 배운 사역의 일부분인 듯하다.

7. **빛과 생명의 일곱째 단계.** 일곱째 시기에 일찍이, **태고 항존자**들이 보낸 어떤 자발적 충고자가, **행성 주권자**에게 조언하는 **삼위일체 교사**와 합세하며, 나중에는 연방우주의 **최상급 행정관**이 그들에게 보낸 세 번째 조인자로 보강될 것이다.

이 시기 이전 또는 이 시기 동안에, **아담과 이**

consist of: the seraphic chief of the sphere, the superuniverse secoraphic counselor, the archangel of translations, and the omniaphim who functions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ssigned Sentinel station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But these advisers never proffer counsel unless it is asked for.

55:4.17 (628.5) 4.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On the worlds the Trinity Teacher Sons appear in new roles. Assisted by the creature-trinitized sons so long associated with their order, they now come to the worlds as volunteer counselors and advisers to the Planetary Sovereign and his associates. Such couples —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and ascender-trinitized sons — represent differing universe viewpoints and diverse personal experiences which are highly serviceable to the planetary rulers.

55:4.18 (628.6) At any time after this age the Planetary Adam and Eve can petition the Sovereign Creator Son for release from planetary duties in order to begin their Paradise ascent; or they can remain on the planet as directors of the newly appearing order of increasingly spiritual society composed of advanced mortals striving to comprehend the philosophic teachings of the finalizers portray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ho are now assigned to these worlds to collaborate in pairs with the seconaphim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55:4.19 (628.7) The finalizers are chiefly engaged in initiating the new and supermaterial activities of society — social, cultur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As far as we can discern, they will continue this ministry far into the seventh epoch of evolutionary stability, when, possibly, they may go forth to minister in outer space; whereupon we conjecture their places may be taken by absonite beings from Paradise.

55:4.20 (628.8) 5. *The fifth stage of light and life.* The readjustments of this stage of settled existence pertain almost entirely to the physical domains and are of primary concern to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5:4.21 (628.9) 6. *The sixth stage of light and life* witnesses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s of the mind circuits of the realm. Cosmic wisdom seems to become constitutive in the universe ministry of mind.

55:4.22 (628.10) 7. *The seventh stage of light and life.* Early in the seventh epoch the Trinity Teacher counselor of the Planetary Sovereign is joined by a volunteer adviser sent by the Ancients of Days, and later on they will be augmented by a third counselor coming from th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55:4.23 (629.1) During this epoch, if not before, Adam and Eve are always relieved of planetary duties. If

브가 반드시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 완결성취자 단체에 한 **물질 아들**이 있다면, 그는 필사 행정관 우두머리와 연합할지도 모르며, 때로는 한 **멜기세덱**이 이 자격으로 활동하겠다고 자원한다. 한 명의 중도자가 완결성취자들 가운데 있다면, 행성에 남아 있는 그 계층 전체가 즉각 풀려난다.

긴 세월의 임무에서 풀려남에 따라, **행성 아담**과 **이브**는 다음과 같은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들은 행성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증 받을 수 있으며, **낙원**으로 가는 생애를 우주 본부에서 즉각 시작하고, 모론시아 체험이 완료될 때 **사고 조율사**를 받는다.

2. 아주 흔히, **행성 아담**과 **이브**는, 빛 속에 정착된 어떤 세계에서 아직 근무하는 동안에 **조율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떤 기간의 행성 봉사를 위해서 자원한, 외계에서 들어온 순수 혈통의 자녀 가운데 일부가 **조율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우주 본부로 가서, 거기서 **낙원** 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

3. **행성 아담**과 **이브**는 --체계 본부에서 온 **물질 아들과 딸들**이 하듯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중간유한절대 세계로 직접 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율사**를 받는다.

4. 그들은 체계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동안 최고 법정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그 근무를 마친 후에 **조율사**를 받고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5. 경영 임무를 마치고, 자신이 태어났던 세계로 가서 한동안 선생으로서 근무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우주 본부로 이동할 때 **조율사**가 내주하게 된다.

이 모든 시기들 내내, 외계에서 들어온 보조하는 **물질 아들과 딸들**은, 진보하는 사회 및 경제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그들은 인간화 되고, **조율사**를 받으며, **낙원**을 향해 출발하기로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는 잠재적으로 불멸한다.

진화 세계에서 **사고 조율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든지 반드시 인간화돼야 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의 상승하는 모든 구성원에게는 **조율사**가 이미 내주하고 융합했으며, 스라빔은 예외인데, 스라빔에게는 이 단체로 소집되는 시점에 **아버지**가 다른 유형의 영으로서 내주한다.

there is a Material Son in the finaliter corps, he may become associated with the mortal chief executive, and sometimes it is a Melchizedek who volunteers to function in this capacity. If a midwayer is among the finaliters, all of that order remaining on the planet are immediately released.

55:4.24 (629.2) Upon obtaining release from their agelong assignment, a Planetary Adam and Eve may select careers as follows:

55:4.25 (629.3) 1. They can secure planetary release and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start out immediately on the Paradise career, receiving Thought Adjusters at the conclusion of the morontia experience.

55:4.26 (629.4) 2. Very often a Planetary Adam and Eve will receive Adjusters while yet serving on a world settled in light concomitant with the receiving of Adjusters by some of their imported pure-line children who have volunteered for a term of planetary service. Subsequently they may all go to universe headquarters and there begin the Paradise career.

55:4.27 (629.5) 3. A Planetary Adam and Eve may elect — as do Material Sons and Daughters from the system capital — to go direct to the midsonite world for a brief sojourn, there to receive their Adjusters.

55:4.28 (629.6) 4. They may decide to return to the system headquarters, there for a time to occupy seats on the supreme court, after which service they will receive Adjusters and begin the Paradise ascent.

55:4.29 (629.7) 5. They may choose to go from their administrative duties back to their native world to serve as teachers for a season and to become Adjuster indwelt at the time of transfer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55:4.30 (629.8) Throughout all of these epochs the imported assisting Material Sons and Daughters exert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progressing social and economic orders. They are potentially immortal, at least until such time as they elect to humanize, receive Adjusters, and start for Paradise.

55:4.31 (629.9) On the evolutionary worlds a being must humanize to receive a Thought Adjuster. All ascendant members of the Mortal Corps of Finaliters have been Adjuster indwelt and fused except seraphim, and they are Father indwelt by another type of spirit at the time of being mustered into this corps.

5. 물질 발달의 전성기

5. THE ACME OF MATERIAL DEVELOPMENT

유란시아처럼, 죄에_짓놀리고, 악이_지배하고, 자아를_추구하는, 격리된 세계에 사는 필사 피조물은, 죄 없는 구체에서 이 진보된 진화 시기들의 특징인, 물리적 완전성, 지적 달성, 및 영적 발전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의 진보된 단계는 물질 진화 발달의 전성기를 나타낸다. 교화{敎化}된 이런 세계에서는, 초기 원시 시대의 게으름과 충돌이 이미 사라졌다.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이 모두 사라졌고, 퇴화가 없어졌으며, 직무 태만은 보기 힘들다. 정신병이 실제로 사라졌고, 정신_박약은 아주 드물다.

이 세계들의 경제, 사회, 및 경영 상태는, 고귀하고 완전하게 된 계층에 속한다. 과학, 예술, 및 산업이 번창하고, 사회는 높은 물질적, 지적, 및 문화적 성취를 이뤄서 순조롭게 작동하는 구조다. 산업은 대체로 그런 뛰어난 문명의 높은 목표를 돕는 쪽으로 크게 전환됐다. 그런 세계의 경제생활은 윤리에 맞춰져 왔다.

전쟁은 역사의 관심거리가 돼버렸고, 더 이상 군대나 경찰은 없다. 정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아_통제가, 인간이 제정한 법규를 서서히 쓸모 없게 만들고 있다. 문명이 중간 정도로 발전돼 있을 때, 시민 정부와 법적 규제는, 시민이 도덕적이고 영적일수록 줄어든다.

학교는 광범하게 개선되고, 정신 훈련과 혼{魂}의 성장에 기여한다. 예술의 전당은 매우 아름답고 음악 단체는 뛰어나다. 경배 드리는 성전은, 그에 관련된 철학 및 체험적 종교 학교들과 함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연출한다. 경배 드리는 집회가 열리는 야외무대는 단순한 예술적 치장이 똑같이 장엄하다.

경쟁하는 놀이, 유머, 그리고 다른 국면의 개인적 및 집단적 성취를 위한 설비는 충분하고 적절하다. 고도로 문화화 된 그런 세계에서 경쟁 활동의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과학과 우주론{宇宙論} 철학에서 뛰어나려고 개인 및 집단이 기울이는 노력과 관계된다. 문학과 웅변술이 번창하고, 언어는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개념을 잘 상징하도록 무척 개선된다. 삶은 상쾌하고 단순하며, 사람은 마침내 고도의 기계 발달과 영감 주는 어떤 지적 달성을 조화시켰고, 절묘한 영적 성취는 이 두 가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쁘고도 만족스런 체험이다.

55:5.1 (629.10) Mortal creatures living on a sin-stricken, evil-dominated, self-seeking, isolated world, such as Urantia, can hardly conceive of the physical perfection, the intellectual attainment, and the spiritual development which characterize these advanced epochs of evolution on a sinless sphere.

55:5.2 (629.11) The advanced stages of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represent the acme of evolutionary material development. On these cultured worlds, gone are the idleness and friction of the earlier primitive ages.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have all but vanished, degeneracy has disappeared, and delinquency is rarely observed. Insanity has practically ceased to exist, and feeble-mindedness is a rarity.

55:5.3 (629.12) The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status of these worlds is of a high and perfected order. Science, art, and industry flourish, and society is a smoothly working mechanism of high material, intellectual, and cultural achievement. Industry has been largely diverted to serving the higher aims of such a superb civilization. The economic life of such a world has become ethical.

55:5.4 (630.1) War has become a matter of history, and there are no more armies or police forces. Government is gradually disappearing. Self-control is slowly rendering laws of human enactment obsolete. The extent of civil government and statutory regulation, in an intermediate state of advancing civilization,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morality and spirituality of the citizenship.

55:5.5 (630.2) Schools are vastly improved and are devoted to the training of mind and the expansion of soul. The art centers are exquisite and the musical organizations superb. The temples of worship with their associated schools of philosophy and experiential religion are creations of beauty and grandeur. The open-air arenas of worship assembly are equally sublime in the simplicity of their artistic appointment.

55:5.6 (630.3) The provisions for competitive play, humor, and other phases of personal and group achievement are ample and appropriate. A special feature of the competitive activities on such a highly cultured world concerns the efforts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excel in the sciences and philosophies of cosmology. Literature and oratory flourish, and language is so improved as to be symbolic of concepts as well as to be expressive of ideas. Life is refreshingly simple; man has at last co-ordinated a high state of mechanical development with an inspiring intellectual attainment and has overshadowed both with an exquisite spiritual achievement. The pursuit of happiness is an experience of joy and satisfaction.

6. 개별 필사자

6. THE INDIVIDUAL MORTAL

세계들이 빛과 생명의 정착된 상태에서 진보할 때, 사회는 점점 더 평화롭게 된다. 개인은, 확실히 자립하고, 자기 가족에 헌신하는 한편, 더 이타적이고 더 형제답게 된다.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현재 상태 그대로는, 완전하게 된 이런 세계들에서 사는 계몽된 인종들의 발전된 상태와 진보된 본성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민족은 진화 인종들의 전성기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도 여전히 필사{必死}이며; 계속 숨쉬고, 먹고, 자고, 마신다. 이렇게 대단한 진화도 하늘나라가 아니며, 하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는 신성한 세계들을 훌륭하게 예시한다.

정상 세계에서, 필사자 인종의 생물학적 건강은, **아담** 이후 시기들 동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지 오래 되었으며; 이제, 안정된 여러 시대 전반에 걸쳐서 사람의 육신적 진화는 계속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확장됐다. 이제는 인구가 고정된 숫자로 안정된다. 출산은 행성의 요구와 타고난 유전적 자질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데; 이 시기 동안, 행성에 있는 필사자들은 다섯 내지 열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하류 집단은 상류 집단보다 절반 정도의 자녀만 두도록 허용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 전반에 걸친 그런 훌륭한 인종의 계속된 개선은 대체로, 우수한 양질의 사회적 본성, 철학적 본성, 시공우주의 본성, 및 영적 본성을 나타내는 인종 혈통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문제다.

이전{以前}의 진화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조울사**가 계속 도래하며, 시기들이 지남에 따라, 이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아버지** 단편과 점점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영적 발달 단계 이전의 배아기{胚芽期}에는 보조 정신_영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정착된 생명의 계속되는 여러 시기를 체험함에 따라서, **거룩한 영**과 천사들의 사역은 더욱 효과를 나타낸다.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에서, 진보된 필사자들은 연방우주가 관할하는 **으뜸 영**의 영 현존과 상당히 큰 의식적{意識的} 접촉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며, 한편 그런 세계의 철학은, **지존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집중된다. 이런 진보된 상태의 행성에서는, 인간 거주자 가운데 반 이상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렇더라도, “옛 것들은 지나가고 있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있다.”

빛과 생명의 시대 가운데 다섯째 시기가 끝날 무렵에, 육체의 진화가 완전한 발달을 달성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화하는 인간 정신과 관련된 영적 발달의 상한{上限}은, 모론시아 가치기준과 시공우주 의미가 결합된 수준, **조울사**와 융합하는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우

55:6.1 (630.4) As worlds advance in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peaceful. The individual, while no less independent and devoted to his family, has become more altruistic and fraternal.

55:6.2 (630.5) On Urantia, and as you are, you can have little appreciation of the advanced status and progressive nature of the enlightened races of these perfected worlds. These people are the flowering of the evolutionary races. But such beings are still mortal; they continue to breathe, eat, sleep, and drink. This great evolution is not heaven, but it is a sublime foreshadowing of the divine worlds of the Paradise ascent.

55:6.3 (630.6) On a normal world the biologic fitness of the mortal race was long since brought up to a high level during the post-Adamic epochs; and now, from age to age throughout the settled eras the physical evolution of man continues. Both vision and hearing are extended. By now the population has become stationary in numbers. Reproduct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planetary requirements and innate hereditary endowments: The mortals on a planet during this age are divided into from five to ten groups, and the lower groups are permitted to produce only one half as many children as the higher.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such a magnificent race throughout the era of light and life is largely a matter of the selective reproduction of those racial strains which exhibit superior qualities of a soci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nature.

55:6.4 (630.7) The Adjusters continue to come as in former evolutionary eras, and as the epochs pass, these mortals are increasingly able to commune with the indwelling Father fragment. During the embryonic and prespiritual stages of development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still functioning. The Holy Spirit and the ministry of angels are even more effective as the successive epochs of settled life are experienced. In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the advanced mortals seem to experience considerable conscious contact with the spirit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while the philosophy of such a world is focused upon the attempt to comprehend the new revelations of God the Supreme. More than one half of the human inhabitants on planets of this advanced status experience translation to the morontia state from among the living. Even so, “old things are passing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ing new.”

55:6.5 (631.1) We conceive that physical evolution will have attained its full development by the end of the fifth epoch of the light-and-life era. We observe that the upper limits of spiritual development associated with evolving human mind are determined by the Adjuster-fusion level of conjoint

리는 목격한다. 그러나 지혜에 관해서는: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지적 진화와 지혜의 달성에 한계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추측한다. 일곱째 단계의 세계에서, 지혜는 물질 잠재력을 다 나타내고, 모타 통찰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결국 유한절대의 위대함도 맞볼 수 있다.

우리는, 고도로 진화되고 오래 지속되는 일곱째 단계의 세계에서, 인간이 진화되기 전에 지방 우주 언어를 충분히 배우는 것을 봤으며;나는, 어벤돈터들이 비교적 나이 든 필사자들에게 연방 우주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몇몇 늙은 행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세계에서, 유한절대 인격체들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완결성취자들의 현존을 드러내는 기법을 관찰해 왔다.

이것은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필사자 투쟁의 훌륭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며;인간이 모론시아 생애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발생하며;인간 거주 세상에서 물질적 필사자는, 이 모든 찬란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런 달성은, **낙원**으로 상승하고 신성에 도달하는, 끝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생애의 바로 첫 단계다.

그러나 정착된 빛과 생명의 일곱째 시기에 오래 존속한 세계들로부터, 지금 어떤 종류의 진화 필사자들이 출현하고 있는지, 너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상승 생애를 시작하려고, 지방 우주 본부의 모론시아 세계들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혼란스런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정착한, 비교적 더 진보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를 볼 수만 있다면, 진화적 창조 기획이라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설령 피조물이 영원히 진보하는 미래가 없더라도, 완전함을 성취한 그런 정착된 세계에서 필사자 인종들이 진화로 훌륭하게 달성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여러 세계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여전히 정당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숙고해 본다: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되면, 상승하는 세련된 필사자들이 여전히 **완결성취 단체**로 들어가게 돼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7. 첫째 단계, 행성 단계

이 시기는, 새로운 행성 본부에 모론시아 성전이 나타나는 때부터,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세계 사명을 종료할 때 시작되는데, 그때 그 구체의 **낙원** 증여 **아들**의 명령으로, 그리고 몸소 출현함으로, **행성 왕자**는 **행성 주권자** 신분으로 올라간다. 이와 동시에, 완결성취자들은 행성 직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morontia values and cosmic meanings. But concerning wisdom: While we do not really know, we conjecture that there can never be a limit to intellectual evolution and the attainment of wisdom. On a seventh-stage world, wisdom can exhaust the material potentials, enter upon mota insight, and eventually even taste of absonite grandeur.

55:6.6 (631.2) We observe that on these highly evolved and long seventh-stage worlds human beings fully learn the local universe language before they are translated; and I have visited a few very old planets where abandoners were teaching the older mortals the tongue of the superuniverse. And on these worlds I have observed the technique whereby the absonite personalities reveal the presence of the finaliters in the morontia temple.

55:6.7 (631.3) This is the story of the magnificent goal of mortal striving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it all takes place even before human beings enter upon their morontia careers; all of this splendid development is attainable by material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the very first stage of that endless and incomprehensible career of Paradise ascension and divinity attainment.

55:6.8 (631.4) But can you possibly imagine what sort of evolutionary mortals are now coming up from worlds long existing in the seventh epoch of settled light and life? It is such as these who go on to the morontia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capital to begin their ascension careers.

55:6.9 (631.5) If the mortals of distraught Urantia could only view one of these more advanced world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would nevermore question the wisdom of the evolutionary scheme of creation. Were there no future of eternal creature progression, still the superb evolutionary attainments of the mortal races on such settled worlds of perfected achievement would amply justify man's creation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55:6.10 (631.6) We often ponder: If the grand universe should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would the ascending exquisite mortals still be destined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But we do not know.

7.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55:7.1 (631.7) This epoch extends from the appearance of the morontia temple at the new planetary headquarters to the time of the settling of the entire system in light and life. This age is inaugurat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at the close of their successive world missions when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status of Planetary Sovereign by the mandate and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at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그런 세계의 실제 통치자 또는 지휘자는, **물질 아들과 딸**, 즉 **행성 아담과 이브**다. 완결성취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론시아 성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왕자_주권자**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행성 체제의 실제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우두머리는 **물질 아들과 딸**이다. 우주 영역들에 두루, 왕과 왕비의 관념이 눈길을 끌어난 것은 이런 체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 환경 아래서 왕과 왕비는 대단히 성공한 자인데, 그런 경우에 한 세계는 그렇게 높은 인격체들에게, 더 높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을 대신해서 활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너희 세계가 그런 시대에 도달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 주권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노라티아덱**의 **지고자**의 피보호자로서 현재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한 아들과 딸이 그를 동반하리라고, **예루셈**에서 오랫동안 추측해 왔다. **아담**의 이 자녀들이 **멜기세덱_주권자**와 연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그렇게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거의 37,000년 전, **에덴시아**로 운반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물질 신체를 포기했을 당시에, 번식 능력을 뺏겼기 때문이다.

정착된 이 시대는, 체계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행성마다 안정된 시절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되며; 그 다음에는, --마침내 빛과 생명을 성취한-- 가장 어린 세계가, 체계 시간으로 1,000년 동안 그런 정착을 체험했을 때, 전체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며, 각 세계는 빛과 생명의 시대라는 체계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8. 둘째 단계, 체계 단계

전체 체계가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새로운 체계의 정부가 출범한다. **행성 주권자**들은 체계 비밀회의의 회원이 되며, **성좌 아버지**들의 거부권에 지배되는 이 새로운 경영 기관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그런 체계는 사실상 자치정부가 된다. 체계의 입법 집회가 본부 세계에 설립되며, 각 행성마다 그곳으로 열 명의 대표자를 보낸다. 법정들이 이제 체계 본부들에 설립되고, 오직 항소(抗訴)만 우주 본부로 이관된다.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서, 연방우주 **최상급 행**

sphere. Concomitant therewith the finaliters inaugurat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planetary affairs.

55:7.2 (632:1) To outward and visible appearances the actual rulers, or directors, of such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e Planetary Adam and Eve. The finaliters are invisible, as also is the Prince-Sovereign except when in the morontia temple. The actual and literal heads of the planetary regime are therefo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It is the knowledge of these arrangements that has given prestige to the idea of kings and queens throughout the universe realms. And kings and queens are a great success under these ideal circumstances, when a world can command such high personalities to act in behalf of still higher but invisible rulers.

55:7.3 (632:2) When such an era is attained on your world, no doubt Machiventa Melchizedek, now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occupy the seat of the Planetary Sovereign; and it has long been conjectured on Jerusem that he will be accompanied by a son and daughter of the Urantia Adam and Eve who are now held on Edentia as wards of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These children of Adam might so serve on Urantia in association with the Melchizedek-Sovereign since they were deprived of procreative powers almost 37,000 years ago at the time they gave up their material bodies on Urantia in preparation for transit to Edentia.

55:7.4 (632:3) This settled age continues on and on until every inhabited planet in the system attains the era of stabilization; and then, when the youngest world — the last to achieve light and life — has experienced such settledness for one millennium of system time, the entire system enters the stabilized status, and the individual worlds are ushered into the system epoch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8. THE SECOND OR SYSTEM STAGE

55:8.1 (632:4) When an entire system becomes settled in life, a new order of government is inaugurated. The Planetary Sovereigns become members of the system conclave, and this new administrative body, subject to the veto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s supreme in authority. Such a system of inhabited worlds becomes virtually self-governing. The system legislative assembly is constituted on the headquarters world, and each planet sends its ten representatives thereto. Courts are now established on the system capitals, and only appeals are taken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55:8.2 (632:5) With the settling of the system the

정관의 대표자인 **배정된 파수꾼**이, 체계의 최고 법정에게 자원하는 충고자가 되고, 새 입법 집회를 실제로 관장하는 관리가 된다.

체계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한 후에는, **체계 주권자**들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권자는 그 체계의 우두머리로서 영구히 남는다. 보조 주권자들은 이전{以前} 시대들에서 하던 것처럼 계속 바뀐다.

안정되는 이 시기 동안에, 머물렀던 우주 본부 세계들로부터 처음으로 중간유한절대자들이 오는데, 입법 집회에 대해 조언하는 자로서, 그리고 판결 법정에 대한 자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 중간유한절대자들은, 완결성취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르치는 기관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 새로운 모타 의미들을 가르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물질 아들**들이 필사자 인종들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행했던 것을, 이제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이, 철학 및 영성화 된 사고{思考}의 계속 발전하는 분야들에서, 통합되고 영화롭게 된 이 인간들을 위하여 행한다.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교사 아들**들은 완결성취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가 되며, 또한 바로 이 **교사 아들**들은, 체계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한 후에, 그 구체들이 특이한 영접 세계로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될 때, 맨션 세계들까지 완결성취자들과 동행하며; 성좌 전체가 그렇게 진화하는 때가 되면, 적어도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나 **네바돈**에는 그렇게 멀리 진보한 집단이 없다.

우리는 다시 헌신된 그런 맨션 세계들을 감독하게 될 완결성취자들의 업무의 본질을 계시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지성 피조물이 우주들 전역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리고 이제, 체계를 구성하는 세계들이 진보한 덕분에, 체계들이 빛 속에 하나씩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주어진 한 성좌에서 마지막 체계가 안정될 때가 도래하며, 우주 행정관들--곧 **옴므 아들**, **함동 항존자**,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 성좌 본부에 도착하는데,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정착된 100체계, 즉 새롭게 완성된 집단의 무조건 통치자는 **지고자**들이라고, 공표하기 위해서다.

9. 셋째 단계, 성좌 단계

정착된 체계들로 이뤄진 한 성좌 전체가 통합되면, 행정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고 추가로 우주 경영을 재조정하는 일이 뒤따른다. 이 시기에, 각 인간거주 세계에서 증진된 달성이 이뤄지는 것을

Assigned Sentinel, representative of th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becomes the volunteer adviser to the system supreme court and actual presiding officer of the new legislative assembly.

55:8.3 (632.6) After the settling of an entire system in light and life the System Sovereigns will no more come and go. Such a sovereign remains perpetually at the head of his system. The assistant sovereigns continue to change as in former ages.

55:8.4 (632.7) During this epoch of stabilization, for the first time midsoniters come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of their sojourn to act as counselors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and advisers to the adjudicational tribunals. These midsoniters also carry on certain efforts to inculcate new mota meanings of supreme value into the teaching enterprises which they sponsor jointly with the finaliters. What the Material Sons did for the mortal races biologically, the midsonite creatures now do for these unified and glorified humans in the ever-advancing realms of philosophy and spiritualized thinking.

55:8.5 (633.1) On the inhabited worlds the Teacher Sons become voluntary collaborators with the finaliters, and these same Teacher Sons also accompany the finaliters to the mansion worlds when those spheres are no longer to be utilized as differential receiving worlds after an entire system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at least this is true by the time the entire constellation has thus evolved. But there are no groups that far advanced in Nebadon.

55:8.6 (633.2) We are not permitted to reveal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finaliters who will supervise such rededicated mansion worlds. You have, however, been informed that there are throughout the universes various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who have not been portrayed in these narratives.

55:8.7 (633.3) And now, as the systems one by one become settled in light by virtue of the progress of their component worlds, the time comes when the last system in a given constellation attains stabilization, and the universe administrators — the Master Son, the Union of Days,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 arrive on the capital of the constellation to proclaim the Most Highs the unqualified rulers of the newly perfected family of one hundred settl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9.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55:9.1 (633.4) The unific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of settled systems is attended by new distributions of executive authority and additional readjustments of universe administration. This epoch witnesses

목적하지만, 그 특징은 체계 감독 및 지방우주 정부 양쪽과 맺는 관계가 두드러지게 수정됨과 아울러, 특별히 성좌 본부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에 많은 성좌 및 우주 활동이 체계 본부로 양도되며, 연방우주 대표자들은, 행정, 체계, 및 우주 통치자들과 새롭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새로운 연합과 동시에, 어떤 연방우주 경영자들이, **지고자 아버지**들에게 자원하는 충고자로서 성좌 본부에 자리를 잡는다.

한 성좌가 그렇게 빛 속에 정착할 때, 입법 기능이 멈추고, **지고자**들이 관장하는 **체계 주권자**들의 의회가 대신 작용한다. 이제 그런 경영 집단들은, **하보나** 및 **낙원**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으로 연방우주 정부를 직접 상대한다. 그 외에 성좌와 지방우주의 관계는 전과 동일하다. 생명이 정착된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유니비타시아가 성좌의 모론시아 세계들을 계속 경영한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세부 경영 기능 또는 전에 우주 본부에 중심 됐던 감독 기능을, **성좌 아버지**들이 점점 더 많이 맡게 된다. 여섯째 안정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통합된 이 성좌들은 거의 완성된 자치권의 지위를 갖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정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고자**라는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참된 존엄성으로 이 통치자들이 고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볼 때, 성좌들은 그때 연방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상대하며, 한편 지방우주 정부는 새로운 광우주 책무를 책임 맡기까지 확장할 것이다.

advanced attainment on every inhabited world but is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readjustment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ith marked modification of relationships with both the system supervision and the local universe government. During this age many constellation and universe activities are transferred to the system capital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eruniverse assume new and more intimate relations with the planetary, system, and universe rulers. Concomitant with these new associations, certain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establish themselve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as volunteer advisers to the Most High Fathers.

55:9.2 (633.5) When a constellation is thus settled in light, the legislative function ceases, and the house of System Sovereigns, presided over by the Most Highs, functions instead. Now, for the first time, such administrative groups deal directly with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in matters pertaining to Havona and Paradise relationships. Otherwise the constellation remains related to the local universe as before. From stage to stage in the settled life the univatatia continue to administer the constellation morontia worlds.

55:9.3 (633.6) As the ages pass, the Constellation Fathers take over more and more of the detailed administrative or supervising functions which were formerly centered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By the attainment of the sixth stage of stabilization these unified constellations will have reached the position of well-nigh complete autonomy. Entrance upon the seventh stage of settledness will no doubt witness the exaltation of these rulers to the true dignity signified by their names, the Most High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constellations will then deal directly with the superuniverse rulers, while the local universe government will expand to grasp the responsibilities of new grand universe obligations.

10. 넷째 단계, 지방우주 단계

한 우주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확립된 연방우주 회로 속으로 곧 들어가며, **무제한의 권세를 가진 최고 협의회**가 설립됐음을 **태고 항존자**들이 선포한다. 새로운 이 통치 기구는 100명의 **충실 항존자**로 구성되고, **합동 항존자**들이 주관하며, 이 최고 협의회의 첫 활동은 **으뜸 창조주 아들**의 계속되는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관계되는 한, 우주 경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이 협의회는, 빛과 생명의 진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조건에 주로 관여한다.

10.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55:10.1 (634.1) When a universe becomes settled in light and life, it soon swings into the established superuniverse circuits, and the Ancients of Days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This new governing body consists of the one hundred Faithfuls of Days, presided over by the Union of Days, and the first act of this supreme council is to acknowledge the continued sovereignty of the Master Creator Son.

55:10.2 (634.2)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s far as concerns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is quite unchanged. This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new problems and the new conditions arising out of the

부(副) 검사관은 이제 **지방우주의 안정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배정된 파수꾼**을 동원하며, 자신과 함께 그 감독을 맡아달라고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영감 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어떤 단체가 **합동 항존자**의 근무에 배정된다.

한 지방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개별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체 짜임새에 깊은 재조정을 일으킨다. 새로운 관계가 아래로 성좌와 체계들까지 확장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연방우주의 **으뜸 영**과 새로운 연락 관계를 체험하며, **가브리엘**은 **으뜸 아들**이 본부 세계에서 부재{不在}하게 될 경우에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태고 항존자**들과 직접 접촉을 수립한다.

이 시대 및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집정관 아들**들이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 계속 활동하며, 한편 이 **낙원 아보날 아들**들 가운데 100명은, **빛나는 새벽별**의 새로운 고등{高等} 협의회를 우주 수도에서 구성한다. 나중에, 그리고 **체계 주권자**들이 요청할 때, 이 **집정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일곱째 통일 단계가 달성될 때까지, 각 지역 체계의 본부 세계에 머무는 최고 조연자가 될 것이다.

이 시기 동안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주권자**들에게 자발적 자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 명씩 무리지어 **성좌 아버지**들을 비슷하게 섬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들은 지방우주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데, 이때 그들이 그 지역 창조물에 대한 관할권에서 제외되고, 무제한 권세를 갖는 최고 협의회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되기 때문이다.

완결성취자 단체는 이제 처음으로, **낙원** 바깥쪽 권세, 즉 최고 협의회의 관할권을 인지한다. 이제까지 완결성취자들은 **낙원** 이쪽에서 행하는 어떤 감독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정착된 우주의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 및 그에 관련된 세계들에서, 그리고 지방 창조계에서 두루 근무하는 수많은 완결성취자 집단과 상담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서 왔던 **미가엘**은,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들과 더욱 충만한 형제우애 관계를 맺을 것이다.

지금 예비로 조립 과정에 있는 외부 우주와 관련된, 이 **창조주 아들**들의 역할에 관해서 추측하는 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이런 가정을 세워보곤 한다. **창조주 아들**은 이 넷째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서 경영상으로 자유롭게 되며, **신성한 사역자**가 자신의 사

advanced status of light and life.

55:10.3 (634.3) The Associate Inspector now mobilizes all Assigned Sentinels to constitute the *stabilization corps of the local universe* and asks the Father Melchizedek to share its supervision with him. And now, for the first time, a corps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Union of Days.

55:10.4 (634.4) The settling of an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inaugurates profound readjustments in the entire scheme of administration, from the individual inhabited worlds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New relationships extend down to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experiences new liaison relations with the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and Gabriel establishes direct contact with the Ancients of Days to be effective when and as the Master Son may be absent from the headquarters world.

55:10.5 (634.5) During this and subsequent ages the Magisterial Sons continue to function as dispensational adjudicators, while one hundred of these Avonal Sons of Paradise constitute the new high council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n the universe capital. Later on, and as requested by the System Sovereigns, one of these Magisterial Sons will become the supreme counselor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ach local system until the seventh stage of unity is attained.

55:10.6 (634.6) During this epoch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volunteer advisers, not only to the Planetary Sovereigns, but in groups of three they similarly serve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at last these Sons find their place in the local universe, for at this time they are remov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creation and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supreme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55:10.7 (634.7) The finaliter corps now, for the first time,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an extra-Paradise authority, the supreme council. Heretofore the finaliters have recognized no supervision this side of Paradise.

55:10.8 (634.8) The Creator Sons of such settled universes spend much of their time on Paradise and its associated worlds and in counseling the numerous finaliter groups serving throughout the local creation. In this way the man of Michael will find a fuller fraternity of association with the glorified finaliter mortals.

55:10.9 (634.9) Speculation concerning the function of these Creator Sons in connection with the outer universes now in process of preliminary assembly is wholly futile. But we all engage in such postulations from time to time. On attaining this fourth stage of development the Creator Son becomes administratively free; the Divine Minister

역을, 연방우주 으뜸 영과 무한한 영의 사역과 점진적으로 혼합시킨다. 창조주 아들, 창조적 영, 저녁별들, 교사 아들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완결 성취자 단체 사이에, 새롭고 탁월한 관계가 전개될 것처럼 보인다.

미가엘이 네바돈을 언제라도 떠나야 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가브리엘이 최고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 멜기세덱은 그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동시에, 물질 아들들, 유니비타시아, 중간유한절대자들, 수사티아, 그리고 영과 융합된 필사자 같은, 모든 계층의 영구 시민에게 새로운 신분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진화가 계속되는 한, 스라빔과 천사장들은 우주 경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추측하는 두 가지 요점에 대해 만족하는데, 창조주 아들들이 외부 우주들로 가도록 정해져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신성한 사역자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자신이 기원된 그 우주에 남을 것이라고, 똑같이 확신한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지방우주 정부 및 경영에서 계속 증가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있다고 본다.

11. 소구역 및 대구역 단계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시키는 계획에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진화로 진보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 단위로서 지방우주에 관련되며, 오직 한 지방우주의 구성원들의 관심거리다. 한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그 구성원인 지방우주들 전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됐을 때다. 그러나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여기에 근접하는 진보 수준을 달성치 못했다.

소구역 시대. 관측이 가능한 한, 다섯째, 즉 소구역 정착 단계는, 오로지 물리적 상태와 관계있고, 연방우주의 확립된 회로에 연합된 100개 지방우주를 대등하게 정착시키는 것과 관계있다. 동력 중심들 및 그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물질 창조를 이렇게 다시 정렬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대구역 시대. 여섯째 단계, 즉 대구역의 안정화에 관해서,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진보된 상태에 있는 인간 거주 세계들과 그 우주 집단화에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영 및 기타 재조정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소구역 상태는 대등한 물리적 평형과 관련되

is progressively blending her ministry with that of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 and the Infinite Spirit. There seems to be evolving a new and sublim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 Son, the Creative Spirit, the Evening Stars, the Teacher Sons, and the ever-increasing finaliter corps.

55:10.10 (635.1) If Michael should ever leave Nebadon, Gabriel would undoubtedly become chief administrator with the Father Melchizedek as his associate. At the same time new status would be imparted to all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such as Material Sons, univitatia, midsoniters, susatia, and Spirit-fused mortals. But as long as evolution continues, the seraphim and the archangels will be required in universe administration.

55:10.11 (635.2) We are, however, satisfied regarding two features of our speculations: If the Creator Sons are destined to the outer universes, the Divine Ministers will undoubtedly accompany them. We are equally sure that the Melchizedeks are to remain with the universes of their origin. We hold that the Melchizedeks are destined to play ever-increasingly responsible parts in local univers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11. THE MINOR AND MAJOR SECTOR STAGES

55:11.1 (635.3)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do not figure directly in the plan of being settled in light and life. Such an evolutionary progression pertains primarily to the local universe as a unit and concerns only the components of a local universe. A superuniverse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when all of its component local universes are thus perfected. But not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has attained a level of progression even approaching this.

55:11.2 (635.4) *The minor sector age.* As far as observations can penetrate, the fifth or minor sector stage of stabilization has exclusively to do with physical status and with the co-ordinate settling of the one hundred associated local universes in the established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 Apparently none but the power centers and their associates are concerned in these realignments of the material creation.

55:11.3 (635.5) *The major sector age.* Concerning the sixth stage, or major sector stabilization, we can only conjecture since none of us have witnessed such an event. Nevertheless, we can postulate much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nd other readjustments which would probably accompany such an advanced status of inhabited worlds and their universe groupings.

55:11.4 (635.6) Since the minor sector status has to

게 돼있으므로, 우리는 대구역 통합이 어떤 새로운 지성 달성 수준, 그리고 아마 시공우주 지혜를 최상으로 실현함으로써 어떤 진보된 수준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개별 세계에서, 그리고 더 오래되고 고도로 발달된 구체들에서 사는 개별 필사자의 체험에서, 그런 업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진화적 진보로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한 수준을 실현하는 데 어떤 재조정들이 혹시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결론에 도달한다.

한 우주 또는 연방우주의 경영 체제와 통치 기법은, 개별 인간거주 행성, 또는 그런 세계에 있는 어떤 개별 필사자의 진화적 발전이나 영적 진보를,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더 오래된 어떤 우주에는, 빛과 생명의 다섯째 및 여섯째 단계에 정착한--곧 심지어 일곱째 시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세계들이 있지만, 그 지역 체계들이 아직 빛 속에 정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비교적 젊은 행성들이 그 체계의 통합을 지연시킬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오래되고 진척된 세계의 진보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격리된 세계에서조차, 환경의 한계가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 달성을 막을 수 없으며;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유란시아**에서 1,900여년 전에 빛과 생명의 신분을 개인적으로 성취했다.

일곱 연방우주의 안정화 사건을 틀림없게 묘사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정착된 세계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한 연방우주 전체가 빛 속에 정착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12. 일곱째 단계, 연방우주 단계

우리는, 한 연방우주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날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사건이 사실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도 반론이 제기된 적이 없는, **멜기세덱**들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는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서, 모든 단위에 대한 전체 조직과 경영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한다.

달리 어딘가에 배속되지 않은,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정착된 연방우주들의 본부 및 구획별 수도들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외부_공간존재들이 **하보나**와 **낙원**으로 가는 길에 언젠가 도달

do with co-ordinate physical equilibrium, we infer that major sector unification will be concerned with certain new intellectual levels of attainment, possibly some advanced achievements in the supreme realization of cosmic wisdom.

55:11.5 (635.7) We arrive at conclusions regarding the readjustments which would probably attend the realization of hitherto unattained levels of evolutionary progress by observing the results of such achievements on the individual worlds and in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 mortals living on these older and highly developed spheres.

55:11.6 (635.8) Let it be made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mechanisms and governmental techniques of a universe or a superuniverse cannot in any manner limit or retard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r spiritual progress of an individual inhabited planet or of any individual mortal on such a sphere.

55:11.7 (635.9) In some of the older universes we find worlds settled in the fifth and the sixth stages of light and life — even far extended into the seventh epoch — whose local systems are not yet settled in light. Younger planets may delay system unification, but this does not in the least handicap the progress of an older and advanced world. Neither can environmental limitations, even on an isolated world, thwart the personal attainment of the individual mortal; Jesus of Nazareth, as a man among men, personally achieved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over nineteen hundred years ago on Urantia.

55:11.8 (636.1) It is by observing what takes place on long-settled worlds that we arrive at fairly reliable conclusions as to what will happen when a whole superuniverse is settled in light, even if we cannot safely postulate the event of the stabil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2.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55:12.1 (636.2) We cannot positively forecast what would occur when a superuniverse became settled in light because such an event has never factualized. From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s, which have never been contradicted, we infer that sweeping changes would be made in the entir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every unit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extending from the inhabited worlds to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55:12.2 (636.3)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large numbers of the otherwise unattached creature-trinitized sons are to be assembled on the headquarters and divisional capitals of the settled superuniverses. This may be in anticipation of the

할 것을 내다보고 그러는가 싶지만;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한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면, 그렇게 될 때, 지금은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이, 연방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높은 경영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들은 유한절대 경영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격체인데, 정착된 연방우주에서 즉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 **무조건 감독관**들이, 발전된 창조물 진화 단위들에서 오랫동안 자문가 및 조언자 역할을 해 왔더라도, **지존하신 분**의 권세가 주권을 갖게 되기 전에는 경영 책임을 맡지 않는다.

이 시기에 더 광범하게 활동하는,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은, 유한하거나, 유한절대이거나, 궁극이거나, 무한하지 않으며;그들은 지존성이며, 오직 **지존자 하나님**을 대변할 뿐이다. 그들은 시공간 지존성이 인격화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보나**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최상의 통합자로서 작용한다. 그들은 아마 우주의 반사성 기법에도 관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광우주가(곧 **하보나**에 의존하는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완전히 정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만족스런 개념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건은, 중앙우주가 출현한 이래, 영원성의 연대기{年代記}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생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존하신 분** 스스로, 자신의 영 인격자를 덮고 있는 **하보나**의 신비로부터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완전하게 된 창조계를 다스리는, 전능하고 체험적인 주권자로서, 일곱째 연방우주 본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사장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sometime arrival of outer-spacers on their way in to Havona and Paradise; but we really do not know.

55:12.3 (636.4) If and when a superuniverse should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we believe that the now advisory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would become the high administrative body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superuniverse. These are the personalities who are able to contact directly with the absonite administrators, who will forthwith become active in the settled superuniverse. Although these Unqualified Supervisors have long functioned as advisers and counselors in advanced evolutionary units of creation, they do not assum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until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Being becomes sovereign.

55:12.4 (636.5)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who function more extensively during this epoch, are not finite, absonite, ultimate, or infinite; they are supremacy and only represent God the Supreme. They are the personalization of time-space supremacy and therefore do not function in Havona. They function only as supreme unifiers. They may possibly be involved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reflectivity, but we are not certain.

55:12.5 (636.6) None of us entertain a satisfactory concept of what will happen when the grand universe (the seven superuniverses as dependent on Havona) becomes entirely settled in light and life. That event will undoubtedly be the most profound occurrence in the annals of eternity since the appearance of the central universe. There are those who hold that the Supreme Being himself will emerge from the Havona mystery enshrouding his spirit person and will become residential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as the almighty and experiential sovereign of the perfected creations of time and space. But we really do not know.

55:12.6 (636.7)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ssigned to the Archangel Council on Urantia.]

제56편. 우주의 통일성

⇨ 055

유란시아 책

05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6편
우주의 통일성

섹션

소개

1. 물리적 조화
2. 지적 통일성
3. 영적 통합
4. 인격 통합
5. 신격 통일성
6. 진화하는 신격의 통합
7. 진화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
8. 최상의 통합자
9. 우주의 절대 통일
10.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

PAPER 56
UNIVERSAL UNITY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Co-ordination
2. Intellectual Unity
3. Spiritual Unification
4. Personality Unification
5. Deity Unity
6. Unification of Evolutionary Deity
7. Universal Evolutionary Repercussions
8. The Supreme Unifier
9. Universal Absolute Unity
10. Truth, Beauty, and Goodness

소개

하나님은 하나됨이시다. **신격**은 보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 온갖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 기구인데, 하나의 무한한 정신이 이를 절대로 통제한다.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우주 창조 범위는 신성하게 상호 관련돼 있다. 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실제로 서로 연결돼 있으며, 따라서 유한한 진화 피조물은, **만유의 아바지**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에 복종해서 **낙원**으로 상승한다.

창조물의 다양한 수준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계획과 경영에서 모두 통합돼 있다. 시_공간 필사자들의 제한된 정신에게는, 우주가 외견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많은 문제와 상황을 나타내고, 효과적인 협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중에서, 더 넓게 퍼져나가는 우주의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고, 창조적 다양성의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통일성을 탐지하며, 대다수의 이 기능 발휘 전체에 만연해 있는, 신성한 하나됨을 발견하는 이 기술에 더 경험이 많은 자는, 보편적 창조 에너지의 이 다채로운 형태화 전체에 나타난 신성하고 유일한

INTRODUCTION

56:0.1 (637.1) GOD is unity. Deity is universally co-ordinated.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one vast integrated mechanism which is absolutely controlled by one infinite mind.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domains of universal creation are divinely correlated. The perfect and imperfect are truly interrelated, and therefore may the finite evolutionary creature ascend to Paradise in obedience to the Universal Father's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56:0.2 (637.2) The diverse levels of creation are all unified in the plans and administra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o the circumscribed minds of time-space mortals the universe may present many problems and situations which apparently portray disharmony and indicate abse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but those of us who are able to observe wider stretches of universal phenomena, and who are more experienced in this art of detecting the basic unity which underlies creative diversity and of

목적을 더 잘 감지한다.

1. 물리적 조화

물리적 창조, 즉 물질 창조물은 무한하지 않지만,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힘, 에너지, 및 동력이 있지만, 기원은 모두 하나다. 일곱 연방우주는 외견상 이중적이며; 중앙우주는 삼중적이지만; **낙원**은 하나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낙원**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물질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그러나 시공우주가 이렇게 기원된 것은 영원성에 속하는 사건이며; 공간이나 물질 시공우주는, 핵을 이루는 **빛의 섬**으로부터 어느 **때**에도 --곧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도-- 결코 나오지 않는다. 시공우주의 근원으로서 **낙원**은, 공간이 있기 전에 그리고 시간 이전에 작용하며; 따라서 그 파생물은, **무조건 절대자**를 통해서 출현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버림받은 듯이 보일 수 있으며, 이 **절대자**는 공간에서 이 파생물의 궁극적 저장소이고, 세월 속에서 그 파생물을 드러내고 조정한다.

무조건 절대자가 물리적 우주를 유지하고, 한편 **신격 절대자**는 모든 물질 실체에 대한 정교한 전면통제를 유발하며; **우주 절대자**가 이 두 **절대자**를 기능상으로 통합한다. 물질 우주에서 응집하는 이 상호 관련성은, 하부 **낙원**에 집중하는 인력에 대해서, 진정한 모든 물질 실체가 어떤 인력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물질, 모론시아, 유한절대, 또는 영적인-- 모든 인격체에게 가장 잘 이해된다.

인력의 통합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며; 순수 에너지 반응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순수 에너지와(곧 근본적 힘과) 순수 영은, 인력보다 온전히 먼저 반응한다. **절대자**들에 내재하는 이 원시 세력들을 **만유의 아버지**께서 친히 통제하시며; 따라서 모든 인력은, 순수 에너지 및 순수 영이 신 **낙원 아버지**께서 몸소 현존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초물질 거주지에 집중된다.

순수 에너지는 상대적이고 기능적인 모든 비{非}_영 실체들의 조상이며, 한편 순수 영은 모든 기본 에너지 체계를 신성하게 지배적으로 전면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공간에 두루 나타날 만큼,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 속에서 발견될 만큼 무척 다양한 이 두 실체는 모두, **낙원 아버지**의 인격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실체들도 하나다--통합돼야 한다. **아버지**의 인격은 절대로 통합돼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에는, 물리적이

discovering the divine oneness which overspreads all this functioning of plurality, better perceive the divine and single purpose exhibited in all these manifold manifestations of universal creative energy.

1. PHYSICAL CO-ORDINATION

56:1.1 (637.3) The physical or material creation is not infinite, but it is perfectly co-ordinated. There are force, energy, and power, but they are all one in origi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seemingly dual; the central universe, triune; but Paradise is of single constitution. And Paradise is the actual source of all material universes — past, present, and future. But this cosmic derivation is an *eternity* event; at no *time* — past, present, or future — does either space or the material cosmos come forth from the nuclear Isle of Light. As the cosmic source, Paradise functions prior to space and before time; hence would its derivations seem to be orphaned in time and space did they not emerge through the Unqualified Absolute, their ultimate repository in space and their revealer and regulator in time.

56:1.2 (637.4) The Unqualified Absolute upholds the physical universe, while the Deity Absolute motivates the exquisite overcontrol of all material reality; and both Absolutes are functionally unified by the Universal Absolute. This cohesive correlation of the material universe is best understood by all personalities — material, morontia, absonite, or spiritual — by the observation of the gravity response of all bona fide material reality to the gravity centering on nether Paradise.

56:1.3 (638.1) Gravity unification is universal and unvarying; pure-energy response is likewise universal and inescapable. Pure energy (primordial force) and pure spirit are wholly preresponsive to gravity. These primal forces, inhering in the Absolutes, are personally controlled by the Universal Father; hence does all gravity center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of pure energy and pure spirit and in his supermaterial abode.

56:1.4 (638.2) Pure energy is the ancestor of all relative, nonspirit functional realities, while pure spirit is the potential of the divine and directive overcontrol of all basic energy systems. And these realities, so diverse as manifested throughout space and as observed in the motions of time, are both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Paradise Father. In him they are one — must be unified — because God is one. The Father's personality is absolutely unified.

56:1.5 (638.3) In the infinite nature of God the Father there could not possibly exist duality of reality,

면서 영적인, 그와 같은 실체의 이중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낙원 아버지의** 인격적 가치의 무한한 수준과 절대 실체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 두 실체가 실존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분이 몸소 현존하심에 대해 그 실체들이 충분히 민감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분 안에 만유가 있다.

낙원 아버지가 무한한 인격체일 것이라는 무조건적 개념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는 순간, 원래의 유일한 **창조주** 인격체,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곧 자존자의--** 이런 이중(二重) 우주 형태화가 계속 **넓어지고** 확산하는 것을 통일시켜야 할 필연적 기법이 **정신**이라고, 너희는 가정해야 한다.

2. 지적 통일성

사고(思考)이신 **아버지**는, **말씀**이신 **아들** 안에서 영(靈) 표현을 실현하며, 광범한 물질 우주들에서 **낙원**을 통해 실체의 확장을 달성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 표현은, **무한한 영**의 역할로 인해서 창조의 여러 물질 수준과 상호 관련되며, 정신에 대해 **무한한 영**이 영으로 **반응**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무한한 영**이 정신을 물리적으로 **지도**하는 행위에서, **신격**의 영적 실체 및 **신격**의 물질적 영향이 서로 관련된다.

정신은 **무한한 영**의 기능적 재능이며, 따라서 잠재력에서 무한하고 보편적으로 증여된다. **만유의 아버지의** 원초적 사고(思考)는, 이중 표현으로 영구화 되는데: 하나는 **낙원 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신격** 동등자, 즉 영적인 **영원한 아들**이다. 영원한 실체의 그런 이중성은, 정신 **하나님**, 즉 **무한한 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정신은 영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경로다.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은, 오직 정신이 이 바지함으로 인해서, 내주하는 영을 느끼고 납득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는, 무한하고 보편적인 이 정신이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부여되며; 보조 영들이 베푸는 원시적 사역으로부터, 한 우주의 최고 행정관의 장엄한 정신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더라도, 심지어 이 시공우주 정신도 **일곱 으뜸 영**의 감독 아래서 함당하게 통합되는데, 이 **일곱 으뜸 영**은 다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존자 정신**과 조화되며, 만물을 **품**는 **무한한 영**의 정신과 완전히 서로 관련된다.

3. 영적 통합

무한한 영이 **낙원**에 몸소 현존하는 곳에 보편적 정신 인력이 집중되듯이, 보편적 영 인력은, **영원한 아들**이 **낙원**에 몸소 현존하는 곳에 집중된

such as physical and spiritual; but the instant we look aside from the infinite levels and absolute reality of the personal values of the Paradise Father, we observe the existence of these two realities and recognize that they are fully responsive to his personal presence; in him all things consist.

56:1.6 (638.4) The moment you depart from the unqualified concept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the Paradise Father, you must postulate MIND as the inevitable technique of unifying the ever-widening divergence of these dual universe manifestations of the original monothetic Creator personalit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the I AM.

2. INTELLECTUAL UNITY

56:2.1 (638.5) The Thought-Father realizes spirit expression in the Word-Son and attains reality expansion through Paradise in the far-flung material universes. The spiritual expressions of the Eternal Son are correlated with the material levels of creation by the functions of the Infinite Spirit, by whose spirit-responsive ministry of mind, and in whose physical-directive acts of mind, the spiritual realities of Deity and the material repercussions of Deity are correlated the one with the other.

56:2.2 (638.6) Mind is the functional endowment of the Infinite Spirit, therefore infinite in potential and universal in bestowal. The primal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eternalizes in dual expression: the Isle of Paradise and his Deity equal, the spiritual and Eternal Son. Such duality of eternal reality renders the mind God, the Infinite Spirit, inevitable. Mind is the indispensable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spiritual and material realities. The material evolutionary creature can conceive and comprehend the indwelling spirit only by the ministry of mind.

56:2.3 (638.7) This infinite and universal mind is ministered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s the cosmic mind; and though extending from the primitive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up to the magnificent mind of the chief executive of a universe, even this cosmic mind is adequately unified in the supervis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are in turn co-ordinated with the Supreme Mind of time and space and perfectly correlated with the all-embracing mind of the Infinite Spirit.

3. SPIRITUAL UNIFICATION

56:3.1 (639.1) As the universal mind gravity is centered in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so does the universal spirit gravity

다. **만유의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이라는 이중 현상으로서 시_공간에 드러나신다.

낙원 영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만, 시_공간의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이 단일 영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격체들 및 발산물(發散物)들, 그리고 **무한한 영** 및 관련된 창조물의 영 인격체들과 영향, 이 두 가지 현상에서 드러나며; 아직 셋째가 있다--순수_영 단편들, 즉 인격이전(人格以前)의, **사고 조율사**라는 **아버지**의 증여물 및 기타 영 실체들이 있다.

우주 활동 가운데 어떤 수준에서 너희가 영적 현상과 마주치거나, 또는 영 존재들과 접촉하거나 상관없이, 너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모두가 파생된다는 것을, **영 아들**과 **무한한 정신 영**의 사역으로 인해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광범한 영(靈)은, 지방우주 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작용한다. 이 **창조주 아들**의 수도로부터, 보조 정신 영들의 사역과 함께,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이, 진화하는 하급 수준의 물질 정신에게 온다.

지존하신 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절대 정신**에게 복종하는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정신은 **오름 영**들의 수준에서 더 통합돼 있지만, 진화하는 세계들에게 베푸는 영의 사역은, 지방우주들의 본부에 거주하는 인격체들 안에서, 그리고 주관하는 **신성한 사역자**들의 인격자 속에서, 더 직접 통합돼 있으며, **신성한 사역자**들은 다시 **영원한 아들**의 **낙원** 인력 회로와 거의 완전히 상호 관련되며, 거기서 모든 시_공간 영 형태화가 최종적으로 통합된다.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의 **삼위일체** 이전(以前) 영 재능 단편과 자아_의식 정신이 융합함으로써, 완전하게 된 피조물 실존이 달성되고 유지되며 영구화 될 수 있다. 필사 정신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아들**들과 **딸**들이 창조한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고 조율사**와 융합했을 때, 진화 영역의 삼중 영 재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 표현은, **우주의 자존자**(自存者)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그들이 **우주의 자존자** 안에서 영원성 속에 그렇게 통합돼서 존재했던 대로, 완결성취자들 속에서 완전히 통합된다.

영은 반드시, 궁극에 삼중적으로 표현돼야 하고, 최종적으로 실현했을 때 **삼위일체**와 통합돼야 한다. 영은 한 근원으로부터 삼중 표현을 통해서 기원되며; 최종적으로, 신성한 통합에서 충만하게 실현돼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데, 그 통합은

center in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 Universal Father is one, but to time-space he is revealed in the dual phenomena of pure energy and pure spirit.

56:3.2 (639.2) Paradise spirit realities are likewise one, but in all time-space situations and relations this single spirit is revealed in the dual phenomena of the spirit personalities and emanations of the Eternal Son and the spirit personalities an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associated creations; and there is yet a third — pure-spirit fragmentations — the Father's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other spirit entities which are prepersonal.

56:3.3 (639.3) No matter on what level of universe activities you may encounter spiritual phenomena or contact with spirit beings, you may know that they are all derived from the God who is spirit by the ministry of the Spirit Son and the Infinite Mind Spirit. And this far-flung spirit functions as a phenomen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s it is direct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s. From these capitals of the Creator Sons come the Holy Spirit and the Spirit of Truth,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to the lower and evolving levels of material minds.

56:3.4 (639.4) While mind is more unified on the level of the Master Spirits in association with the Supreme Being and as the cosmic mind in subordination to the Absolute Mind, the spirit ministry to the evolving worlds is more directly unified in the personalities resident on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s and in the persons of the presiding Divine Ministers, who are in turn well-nigh perfectly correlated with the Paradise 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wherein occurs final unification of all time-space spirit manifestations.

56:3.5 (639.5) Perfected creature existence can be attained, sustained, and eternalized by the fusion of self-conscious mind with a fragment of the pre-Trinity spirit endowment of some one of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The mortal mind is the creation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nd, when fused with the Thought Adjuster from the Father, partakes of the threefold spirit endowment of the evolutionary realms. But these three spirit expressions become perfectly unified in the finalizers, even as they were in eternity so unified in the Universal I AM ere he ever became the Universal Father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56:3.6 (639.6) Spirit must always and ultimately become threefold in expression and Trinity-unified in final realization. Spirit originates from one source through a threefold expression; and in finality it must and does attain its full realization in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함에서--곧 신성과 하나됨에서-- 체험되고, **아버지**의 보편적 사고를 영원한 말씀으로 무한히 표현하는, 그 시공우주 정신의 사역을 수단으로 해서 체험된다.

4. 인격 통합

만유의 아버지는 신성하게 통합된 인격이시며;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질 인간 속에 내주하기 위해 **낙원**으로부터 나아왔던 **사고 조율사**들의 반동 추진력으로, **낙원**으로 옮겨지는 모든 상승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통합된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은 선천적으로, 그를 구성하는 모든 실체를 통합하는 지점에 이르게 돼있다. **제1 근원 및 중심**, 즉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인격은, 그 구성요소인 일곱 **무한 절대자** 전체를 통합하며; 필사적 사람의 인격도, **만유의 아버지**께서 독점적으로 직접 증여하셨으므로, 필사 피조물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잠재력을 똑같이 소유한다. 모든 피조물 인격의 그런 통합하는 창조성은, 그 인격의 고귀하고 독점적인 근원을 가리키는 출생반점이며, 인격 회로를 통해서 바로 이 근원과 중단 없는 접촉을 이루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데, 이 인격 회로를 수단으로 해서, 피조물의 인격은, **낙원**에 계시는, 모든 인격의 **아버지**와 직접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칠중존재의 영도들로부터 지존성과 궁극성을 거쳐서 **절대자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도, 지성체 실존의 모든 수준에 있는, 그리고 완전하고 완전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고 있는 모든 우주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 인격체를 고려하는 한, **낙원**에 집중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자에 집중하는 인격 회로는, 신성한 인격의 이 다양한 표현 전체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통합한다.

여러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해 온 것 전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너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그는 한 분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시다. 인격체에게 **하나님**은 여럿일 수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 각자에게 **아버지**시며, 어떤 아이라도 아버지를 하나 이상 갖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철학적으로, 시공우주에서, 그리고 형태화의 특이한 수준 및 위치들을 고려할 때, 너희는 여러 **신격**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부득이 상상해야 하며, 여러 **삼위일체** 실존을 가정해야 하지만; 총괄우주 도처에서 경배하는 각 인격체마다, 몸소 접촉하는 경건한 체험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통합되고 인격있는 그 **신격**은, 우리의

that divine unification which is experienced in finding God — oneness with divinity — in eternity, and by means of the ministry of the cosmic mind of the infinite expression of the eternal word of the Father's universal thought.

4. PERSONALITY UNIFICATION

56:4.1 (639.7) The Universal Father is a divinely unified personality; hence will all his ascendant children who are carried to Paradise by the rebound momentum of the Thought Adjusters, who went forth from Paradise to indwell material mortals in obedience to the Father's mandate, likewise be fully unified personalities ere they reach Havona.

56:4.2 (640.1) Personality inherently reaches out to unify all constituent realities. The infinit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Father, unifies all seven constituent Absolutes of Infinity; and the personality of mortal man, being an exclusive and direct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likewise possesses the potential of unifying the constituent factors of the mortal creature. Such unifying creativity of all creature personality is a birthmark of its high and exclusive source and is further evidential of its unbroken contact with this same source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by means of which the personality of the creature maintains direct and sustaining contact with the Father of all personality on Paradise.

56:4.3 (640.2) Notwithstanding that God is manifest from the domains of the Sevenfold up through supremacy and ultimacy to God the Absolute, the personality circuit, centering on Paradise and in the person of God the Father, provides for the complete and perfect unification of all these diverse expressions of divine personality so far as concerns all creature personalities on all levels of intelligent existence and in all the realms of the perfect, perfected, and perfecting universes.

56:4.4 (640.3) While God is to and in the universes all that we have portrayed, nevertheless, to you and to all other God-knowing creatures he is one, your Father and their Father. To personality God cannot be plural. God is Father to each of his creatures, and it is literally impossible for any child to have more than one father.

56:4.5 (640.4) Philosophically, cosmically, and with reference to differential levels and locations of manifestation, you may and perforce must conceive of the functioning of plural Deities and postulate the existence of plural Trinities; but in the worshipful experience of the personal contact of every worshiping personality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God is one; and that unified and

낙원 부모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인간거주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중앙 **빛의 섬**에 있는 **영원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격의 증여자요, 보호자요, **아버지**시다.

personal Deity is our Paradise parent, God the Father, the bestower, conservator, and Father of all personalities from mortal man on the inhabited worlds to the Eternal Son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5. 신격 통일성

낙원 신격의 단일성, 즉 불가분성{不可分性}은, 실존적이고 절대적이다.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화가--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있지만,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은 실제로 한 **신격**이며, 나뉘어 있지 않고 나뉘 수도 없다.

원 래 **낙원_하보나** 수준의 실존적 실체로부터, 절대 이하의 두 수준이 분화됐고, 그 후로 즉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수많은 인격있는 동역자 및 하위 존재의 창조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월적 궁극 수준에서 유한절대 신격 통합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애쓰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다양하게 인격화{人格化}된 **신격**의 통합하는 기능의 어떤 특색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한데, 다양한 창조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계층의 지성적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인격화된 **신격** 안에 신성이 기능적으로 나타난다.

연방우주들에서 신성이 현재 발휘하는 기능은, **최상급 창조주**들--곧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들 및 **영**들, 연방우주 **태고 항존자들**, 그리고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작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 존재들은 **만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안쪽으로 이끄는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을 구성하며, **칠중 하나님**의 이 전체 영토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 안에서 체험적 신격의 첫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다.

낙원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 **신격**의 통일성은 실존하는 사실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우주들 전역에서, **신격**의 통일성은 성취되고 있다.

6. 진화하는 신격의 통합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자가,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격**으로서 작용할 때, 세 분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며; 마찬가지로, 세 분이 연합으로 또는 나뉘어 창조할 때, 그분들의 **낙원** 자손은 그 특징인 신성의 통일을 드러낸다. 그리고 시_공간 영토의 **최상급 창조주**들과 **통치자**들이 명백히 나타내는 이 신성한 목적은, 결국 체험적으로 최상인, 주권으로 통합하는 잠재적 권능이 되는데, 그 잠재성은 실체의 긴장상태{緊張狀態}를 일으키며, 이것은 우주의 비인격 에너지가 통일된 가운데, 오직 체험적 **신격**의 체험하는 인격

5. DEITY UNITY

56:5.1 (640.5) The oneness, the indivisibility, of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and absolute. There are three eternal personalizations of Deity —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but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actually* one Deity, undivided and indivisible.

56:5.2 (640.6) From the original Paradise-Havona level of existential reality, two subabsolute levels have differentiated, and thereon have the Father, Son, and Spirit engaged in the creation of numerous personal associates and subordinates. And while it is inappropriate in this connection to undertake the consideration of absonite deity unification on transcendental levels of ultimacy, it is feasible to look at some features of the unifying function of the various Deity personalizations in whom divinity is functionally manifest to the diverse sectors of creation and to the different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56:5.3 (640.7) The present functioning of divinity in the superuniverses is actively manifest in the operations of the Supreme Creators — the local universe Creator Sons and Spirits, the superunivers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ese beings constitute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leading inward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entire domain of God the Sevenfold is co-ordinating on the first level of experiential deity in the evolving Supreme Being.

56:5.4 (641.1)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Deity unity is a fact of existence.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Deity unity is an achievement.

6. UNIFICATION OF EVOLUTIONARY DEITY

56:6.1 (641.2) When the three eternal persons of Deity function as undivided Deity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achieve perfect unity; likewise, when they create, either associatively or severally, their Paradise progeny exhibit the characteristic unity of divinity. And this divinity of purpose manifested by the Supreme Creators and Rulers of the time-space domains eventuates in the unifying power potential of the sovereignty of experiential supremacy which, in the presence of the impersonal energy unity of the universe, constitutes a reality tension that can be resolved

실체들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지존하신 분의 인격 실체들은 **낙원 신격**들로부터 솟아나오며, **하보나**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들에서, 광우주의 **창조주**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한 지존자**의 특권이 있는 권능과 통합한다. 한 인격자로서 **지존자 하나님**은, 일곱 연방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보나**에 존재했지만, 오직 영적 수준에서만 활동했다.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다양한 신성이 합성됨으로써, **전능자의 지존성** 권능이 진화하여, 결국 새로운 권능을 가진 **신격** 현존이 됐는데, 이것은 **지존자 정신**을 수단으로 해서, **하보나**에 계시는 **지존자**의 영적 인격자와 조정됐으며, 동시에 이 **지존자 정신**은, **무한한 영**의 무한한 정신에 거하는 잠재성으로부터, **지존하신 분**의 활기찬 기능적 정신으로 전환됐다.

일곱 연방우주의 진화 세계들에서 물질_정신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지존하신 분**이 이런 권능과 인격의 합성 속에서 진화하는 그런 **신격** 통일성을 납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실존 수준에서든지, 그런 수준에서 사는 존재의 개념 수용력을 넘어서 수 없다. 진리를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선함을 존중함으로써, 필사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리고 나서, 높아지는 신격 수준을 거쳐서 **지존자**를 납득하기까지 진보해야 한다. **신격**은, 이처럼 권능에서 통합됐다고 파악했으므로, 그 다음에 피조물이 이해하고 달성하도록 영으로 인격화 될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연방우주 수도에서 **전능자**의 권능을 납득하고, **하보나** 바깥쪽 회로에서 **지존자**의 인격을 납득하지만, **낙원 신격**들을 발견하도록 예정돼 있는 것과는 달리, **지존하신 분**을 실제로 발견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여섯째 단계 영인 완결성취자들조차 **지존하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은 일곱째 단계 영의 신분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지존자**가 미래의 외부 우주들의 활동에서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 발견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상승하는 자들이, **만유의 아버지**가 **칠중 하나님**의 일곱째 수준이심을 발견할 때, 그들은 이미, 우주 피조물과 맺는 모든 신격 수준의 인격적 관계에서, **제1 인격자**의 인격에 도달한 것이다.

only through adequate unification with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realities of experiential Deity.

56:6.2 (641.3) Th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Supreme Being come forth from the Paradise Deities and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Havona circuit unify with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Supreme coming up from the Creator divinities of the grand universe. God the Supreme as a person existed in Havona before the cre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he functioned only on spiritual levels.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Supremacy by diverse divinity synthesis in the evolving universes eventuated in a new power presence of Deity which co-ordinated with the spiritual person of the Supreme in Havona by means of the Supreme Mind, which concomitantly translated from the potential resident in the infinit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active functional mind of the Supreme Being.

56:6.3 (641.4) The material-minded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can comprehend Deity unity only as it is evolving in this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On any level of existence God cannot exceed the conceptual capacity of the beings who live on such a level. Mortal man must, through the recognition of truth, the appreciation of beauty, and the worship of goodness, evolve the recognition of a God of love and then progress through ascending deity level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Deity, having been thus grasped as unified in power, can then be personalized in spirit to creature understanding and attainment.

56:6.4 (641.5) While ascending mortals achieve power comprehension of the Almighty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and personality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on the outer circuits of Havona, they do not actually find the Supreme Being as they are destined to find the Paradise Deities. Even the finaliters, sixth-stage spirits, have not found the Supreme Being, nor are they likely to until they have achieved seventh-stage-spirit status, and until the Supreme has become actually functional in the activities of the future outer universes.

56:6.5 (641.6) But when ascenders find the Universal Father as the seventh level of God the Sevenfold, they have attained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Person of all deity levels of personal relationships with universe creatures.

7. 진화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

시_공간 우주에서 진화가 꾸준히 진보함에 따라서, 모든 지성 피조물에 대한 **신격**의 계시가

7. UNIVERSAL EVOLUTIONARY REPERCUSSIONS

56:7.1 (642.1) The steady progress of evolution in the time-space universes is accompanied by ever-

계속 확장된다. 한 세계, 체계, 성좌, 우주, 연방우주, 또는 광우주에서 진화함으로써 진보가 절정에 도달하면, 이런 연속되는 창조 구성단위들에게, 그리고 그 구성단위들 안에, 상응하는 신격 기능이 확장됐다는 신호다. 신성의 실현이 그렇게 국지적으로 향상될 때마다 뒤이어서, 모든 다른 창조 구역에게 신격이 표명하는, 윤곽이 뚜렷한 어떤 영향이 확대된다. **낙원**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면서, 진화로 실현하고 달성한 새로운 각 영토는, 체험하는 **신격**이 온갖 우주에게 주는 새롭고 확장된 계시가 된다.

한 지방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이 빛과 생명에 점진적으로 정착함에 따라서, **칠중 하나님**이 점점 더 명백히 나타난다. 한 행성에서 시공간의 진화는, 통제하는 **칠중 하나님**의 첫 표현과 함께--**곤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연합과 함께-- 시작된다. 한 체계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런 **아들**과 **영**의 연락이 온전히 작동하게 되며; 성좌 전체가 그렇게 정착되면, **칠중 하나님**의 둘째 국면은 그런 영역에서 두루 더 활발하게 된다. 한 지방우주에서 행정부의 진화가 완성됨에 따라, 연방우주 **으뜸 영**들이 새롭게 더 직접 돌보게 되며; 이 시점에 **지존자 하나님**의 계속 확장되는 계시와 실현이 또한 시작되는데, 여섯째 **하보나** 회로의 세계들을 통과하는 동안, **지존하신 분**에 대한 상승자의 이해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지성 피조물에게 형태화되는 실존적 신격이며, 따라서 모든 창조계의 정신 및 영 피조물과 맺는 개인적 관계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신격**들을 인격있는 존재로서 체험으로 몸소 인식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충분히 영적으로 변화되고 적절하게 교육 받기 훨씬 전에, 이어지는 **신격** 수준의 비인격 현존을 이 필사자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조계의 한 구역 안에서 새로운 진화 달성이 있을 때마다, 신성 형태화가 공간을 새로 차지할 때마다, 뒤이어서, 당시에 현존하고 예전에 조직된 모든 창조 단위 안에서, **신격**의 기능적 계시가 일시에 확장된다. 우주와 그 구성 단위들의 경영 업무가 이렇게 새로 밀어닥치는 것은, 여기에 윤곽을 제시한 기법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각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영을 전면통제하는, 차후의 이어지는 새 시대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려고, 경영자 중에서 진보된 집단들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궁극자 하나님**도, 빛과 생명에 정착된 어떤 지방우주의 후

enlarging revelations of Deity to all intelligent creatures. The attainment of the height of evolutionary progress on a world, in a system, constellation, universe, superuniverse, or in the grand universe signalizes corresponding enlargements of deity function to and in these progressive units of creation. And every such local enhancement of divinity realization is accompanied by certain well-defined repercussions of enlarged deity manifestation to all other sectors of creation. Extending outward from Paradise, each new domain of realized and attained evolution constitutes a new and enlarged revelation of experiential Deity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56:7.2 (642.2) As the components of a local universe are progressively settled in light and life, God the Sevenfold is increasingly made manifest. Time-space evolution begins on a planet with the first expression of God the Sevenfold — the Creator Son-Creative Spirit association — in control. With the settling of a system in light, this Son-Spirit liaison attains the fullness of function; and when an entire constellation is thus settled, the second phase of God the Sevenfold becomes more active throughout such a realm. The completed administrative evolution of a local universe is attended by new and more direct ministrations of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s; and at this point there also begins that ever-expanding revelation and realization of God the Supreme which culminates in the ascender's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Being while passing through the worlds of the sixth Havona circuit.

56:7.3 (642.3)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existential deity manifestations to intelligent creatures and are not, therefore, similarly expanded in personality relations with the mind and spirit creatures of all creation.

56:7.4 (642.4) It should be noted that ascending mortals may experience the impersonal presence of successive levels of Deity long before they become sufficiently spiritual and adequately educated to attain experiential personal recognition of, and contact with, these Deities as personal beings.

56:7.5 (642.5) Each new evolutionary attainment within a sector of creation, as well as every new invasion of space by divinity manifestations, is attended by simultaneous expansions of Deity functional-revelation within the then existing and previously organized units of all creation. This new invasion of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universes and their component units may not always appear to be executed exactly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que herewith outlined because it is the practice to send forth advance groups of administrators to prepare the way for the

기 단계들 동안에, 자신이 우주들을 초월적으로 전면통제하리라는 것을 예시하신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가 진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의 새롭고 더 충만한 기능발휘가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상응하여 동시에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형태화가 철수한다. 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지존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시작한다면, **칠중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적** 형태화의 미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시_공간 우주들을 조직하고 개척한 이분들은 외부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도록 해방될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비롯해서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많이 추측해 본다.

체험하는 **신격**의 개척지가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이 창조계 가운데 초기의 진화 시절에 **칠중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상상해본다. 우리는, **태고 항존자들**과 연방우주 **으뜸 영**들의 미래 지위에 관해서,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존하신 분**이 일곱 연방우주에서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도 작용하게 될지 아닐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들이 이 외부 우주들에서 활동하게 돼있다고 추측한다. 더러는, 연합된 **창조주 아들**들과 **신성한 사역자들**이 더 밀접한 형태로 합동하는 것을 미래 시대에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창조자 합동이 결국 궁극적 본성을 갖는, 부{副}_창조자 신분의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 정말로 아는 바 없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칠중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 진화적 접근이 **지존자 하나님** 안에서 체험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외부 우주들에서도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언젠가 이 우주들에 거주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궁극적 수준에서, 그리고 유한절대 기법으로, **신격**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서 **신격**에게 접근하는 어떤 기법이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완전하게 된 연방우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외부 창조계에 거주하게 될 그 존재들이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의 일부가 되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 미래 시대에, **일곱 으뜸 영**의 협동과 함께 또는 협동 없이, **지존자 하나님**이 경영하는 일곱 연방우주를 거쳐서 **하보나**에 접근하는 외부_공간존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subsequent and successive eras of new administrative overcontrol. Even God the Ultimate foreshadows his transcendental overcontrol of the universes during the later stages of a local universe settled in light and life.

56:7.6 (642.6) It is a fact that, as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progressively settled in evolutionary status, there is observed a new and fuller functioning of God the Supreme concomitant with a corresponding withdrawing of the first three manifestations of God the Sevenfold. If and when the grand universe becomes settled in light and life, what then will be the future function of the Creator-Creative manifestations of God the Sevenfold if God the Supreme assumes direct control of thes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these organizers and pioneers of the time-space universes to be liberated for similar activities in outer space? We do not know, but we speculate much concerning these and related matters.

56:7.7 (643.1) As the frontiers of experiential Deity are extended out into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e envision the activity of God the Sevenfold during the earlier evolutionary epochs of these creations of the future. We are not all in agreement respecting the future statu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s. Neither do we know whether or not the Supreme Being will therein function a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we all conjecture that the Michaels, the Creator Sons, are destined to function in these outer universes. Some hold that the future ages will witness some closer form of union between the associated Creator Sons and Divine Ministers; it is even possible that such a creator union might eventuate in some new expression of associate-creator identity of an ultimate nature. But we really know nothing about these possibilities of the unrevealed future.

56:7.8 (643.2) We do know, however, that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God the Sevenfold provides a progressiv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at this evolutionary approach is experientially unified in God the Supreme. We might conjecture that such a plan must prevail in the outer universes; on the other hand, the new orders of beings that may sometime inhabit these universes may be able to approach Deity on ultimate levels and by absonite techniques. In short, we have not the slightest concept of what technique of deity approach may become operative in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56:7.9 (643.3) Nevertheless, we deem that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will in some way become a part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s of those beings who may inhabit these outer creations. It is quite possible that in that future age we may witness outer-spacers approaching Havona through the seven superuniverses,

매우 높다.

8. 최상의 통합자

지존하신 분은 필사적 사람의 체험에서 삼중 역할을 한다: 첫째로, 그는 시-공간 신성, 즉 **칠중 하나님**을 통합하는 분이며; 둘째로, 그는 유한한 피조물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신격**의 최대치이며; 셋째로, 그는 유한절대 정신, 영원한 영, 및 **낙원** 인격체와 교제하는 초월적 체험을, 필사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접근로다.

상승한 완결성취자들은, 지방우주에서 태어나서, 연방우주에서 양육 받고, 중앙우주에서 훈련 받았으므로, **지존자** 안에서 통합하는 **칠중 하나님**의 시-공간 신성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자신의 개인 체험 속에 지니고 있다. 완결성취자들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연방우주들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데, 그리하여 피조물이 체험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다양성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체험에 체험을 더한다. 완결성취자들은, 내주하는 **조율사**의 사역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완결성취자들은 바로 이 체험 기법으로, **지존하신 분**을 실제로 알게 되며,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서, 그리고 그 우주들에게, 이 **지존적 신격**을 계시하고 섬기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낙원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영으로,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우주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는 체험은 상호적(相互的)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대신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께 줄 필요가 있다(또는 줄 수 있다).

모든 창조 현상은 선행(先行)하는 창조자와 영의 활동을 반영한다. 예수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직접 본 것만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장차, 동료들에게 **지존자**를 계시하기 시작할 수 있고, 너희가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동안에 이 계시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영원 속에서, 일곱째 단계의 완결성취자로서, 너희는 최상--삼지어 궁극--수준에서 이 진화하는 피조물의 **하나님**을 더욱 계시하도록 허용될지도 모른다.

9. 우주의 절대 통일

administered by God the Supreme with or without the collabor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8. THE SUPREME UNIFIER

56:8.1 (643.4) The Supreme Being has a threefold function in the experience of mortal man: First, he is the unifier of time-space divinity, God the Sevenfold; second, he is the maximum of Deity which finite creatures can actually comprehend; third, he is mortal man's only avenue of approach to the transcendental experience of consorting with absonite mind, eternal spirit, and Paradise personality.

56:8.2 (643.5) Ascendant finaliters, having been born in the local universes, nurtured in the superuniverses, and trained in the central universe, embrace in their personal experiences the full potential of the comprehension of the time-spac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unifying in the Supreme. Finaliters serve successively in superuniverses other than those of nativity, thereby superimposing experience upon experience until the fullness of the sevenfold diversity of possible creature experience has been encompassed. Through the ministry of the indwelling Adjusters the finaliters are enabled to find the Universal Father, but it is by these techniques of experience that such finaliters come really to know the Supreme Being, and they are destined to the service and the revelation of this Supreme Deity in and to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56:8.3 (644.1) Bear in mind, all that God the Father and his Paradise Sons do for us, we in turn and in spirit have the opportunity to do for and in the emerging Supreme Being. The experience of love, joy, and service in the universe is mutual. God the Father does not need that his sons should return to him all that he bestows upon them, but they do (or may) in turn bestow all of this upon their fellows and upon the evolving Supreme Being.

56:8.4 (644.2) All creational phenomena are reflective of antecedent creator-spirit activities. Said Jesus, and it is literally true, “The Son does only those things which he sees the Father do.” In time you mortals may begin the revelation of the Supreme to your fellows, and increasingly may you augment this revelation as you ascend Paradiseward. In eternity you may be permitted to make increasing revelations of this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on supreme levels — even ultimate — as seventh-stage finaliters.

9. UNIVERSAL ABSOLUTE UNITY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통합된다. **절대자**들은 **궁극자**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존자** 안에서 제한되며, **칠중 하나님** 안에서 시_공간이 수정된다. 무한 이하 수준에서는 **세 절대자**가 있지만, 무한 수준에서 그들은 **하나**인 것 같다. **낙원**에서는 **신격**이 세 분으로 인격화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들은 **하나**이다.

총괄우주의 주요 철학적 명제는 이렇다:**절대자가**(곧 무한 속에서 하나인 **세 절대자**가) **삼위일체**보다 앞서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 **절대자**는 **삼위일체**의 조상인가? 아니면 **삼위일체**가 **절대자**보다 앞서는가?

무조건 절대자는 **삼위일체**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력 현존이신가? **신격 절대자**의 현존은 **삼위일체**의 역할이 무제한임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우주 절대자**는, **삼위일체**, 심지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최종 역할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절대자**가 만물의--심지어 **삼위일체**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일관성을 충족시키고 철학적으로 통합되는 일시적 만족감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 어떤 결론도, **낙원 삼위일체**가 영원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삼위일체** 동역자들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존에서 영원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오직 한 가지 일관된 철학적 결론이 가능한데, 모든 우주 지성체가 보기에, **절대자**는 우주_내부 및 우주_외부의 모든 1차 기본 공간 상황에 대해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비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광우주에서 인격을 지닌 모든 지성존재들에게, **낙원 삼위일체**는, 완결성, 영원성, 지존성, 및 궁극성에 언제나 참여하시며, 또한 개인적으로 납득시키고 피조물을 깨닫게 하려는 모든 실질적 목적을 위해 절대원리로서 참여하신다.

피조물 정신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다시피, 그들은 **우주의 자존자**가, **삼위일체**와 **절대자**, 이 두분의 최초 원인이고 무조건 근원이라는 최종의 가설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자**가 인격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몹시 연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낙원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이상{理想}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른 면에서 비인격인 이 **절대자**를 납득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거나 그를 더 크게 의식하기를 우리가 바랄 때,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가 절대 인격을 가진 실존적 **아버지**라는 사실로 돌아오며; **영원한 아들**은 체험적 의미에서는 **절대자**의 인격화가 아니지만, 그가 **절대 인격자**라는 사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체험적 **삼위일체**들이 결국 체험으로 **신격 절대자**의 인격화를 초래한다고 상상하는 한편, **우주 절대자**는 지존성, 궁극성, 및 무한성을 가진, 통합되고 조화된 **신격 연합의**--곧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비인격 활동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그

56:9.1 (644.3)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Deity Absolute are unified in the Universal Absolute. The Absolutes are co-ordinated in the Ultimate, conditioned in the Supreme, and time-space modified in God the Sevenfold. On subinfinite levels there are *three* Absolutes, but in infinity they appear to be *one*. On Paradise there are three personalizations of Deity, but in the Trinity they are one.

56:9.2 (644.4) The major philosophic proposi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is: Did the Absolute (the three Absolutes as one in infinity) exist before the Trinity? and is the Absolute ancestral to the Trinity? or is the Trinity antecedent to the Absolute?

56:9.3 (644.5) Is the Unqualified Absolute a force presence independent of the Trinity? Does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connote the unlimited function of the Trinity? and is the Universal Absolute the final function of the Trinity, even a Trinity of Trinities?

56:9.4 (644.6) On first thought, a concept of the Absolute as ancestor to all things — even the Trinity — seems to afford transitory satisfaction of consistency gratification and philosophic unification, but any such conclusion is invalidated by the actuality of the eternity of the Paradise Trinity. We are taught, and we believe, tha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Trinity associates are eternal in nature and existence. There is, then, but one consistent philosophic conclusion, and that is: The Absolute is, to all universe intelligences, the impersonal and co-ordinate reaction of the Trinity (of Trinities) to all basic and primary space situations, intrauniversal and extrauniversal. To all personality intelligences of the grand universe the Paradise Trinity forever stands in finality, eternity, supremacy, and ultimacy and, for all practical purposes of personal comprehension and creature realization, as absolute.

56:9.5 (644.7) As creature minds may view this problem, they are led to the final postulate of the Universal I AM as the primal cause and the unqualified source of both the Trinity and the Absolute. When, therefore, we crave to entertain a personal concept of the Absolute, we revert to our ideas and ideals of the Paradise Father. When we desire to facilitate comprehension or to augment consciousness of this otherwise impersonal Absolute, we revert to the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the existential Father of absolute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Person, though not, in the experiential sense, the personalization of the Absolute. And then we go on to envisage the experiential Trinities as culminating in the experiential person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while conceiving the Universal Absolute as constituting the universe and the extrauniverse phenomena of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런 우주 및 우주 바깥의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유한에서 무한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식별될 수 있으며, **낙원**에서 진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이 그분을 다양하게 감지할지라도, 오직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그분을 무한으로서 이해한다.

영적 인격은 오직 **낙원**에서만 절대적이고, **절대자** 개념은 오직 무한 속에서만 무조건적이다. **신격** 현존은 오직 **낙원**에서만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계시{啓示}는 그의 능력이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 속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될 때까지 반드시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진보하는 것임에 틀림없고, 한편 그의 인격이 형태화되는 것은 **신격 절대자**의 분명한 현존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되며, 또한 무한성의 이 두 잠재력은 **우주 절대자** 안에서 실체로서 통합된다.

그러나 무한 이하의 수준을 넘어서면 세 **절대자**는 **하나**이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계층의 실존이 무한에 대한 의식{意識}을 언제든지 스스로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그 무한을 **신격**은 깨닫는다.

비록 무한한 영원에--곧 영원한 무한에--내재적인 체험적 잠재성을 스스로 깨닫는 체험을 겪기까지 또 한 번의 영원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원 속에서 실존적 상태는 무한을 실존적으로 자아_의식{意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우주 전역에서, **신격**과 실체가 지성 피조물 및 영 존재들에게 형태화 되는 모든 경우의 인격적 근원이시다. 인격체로서, 현재 또는 영원한 미래에 이어지는 우주 체험들에서, 너희가 **칠중 하나님**께 도달하든지, **지존자 하나님**을 납득하든지, **궁극자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또는 **절대자 하나님**의 개념을 납득하려고 애쓰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자신이 영원히 만족하게 되기까지, 각 모험을 완성하는 동안, 너희가 새로운 체험 수준에서 영원한 **하나님**을--곧 모든 우주 인격체들의 **낙원 아버지**를--다시 찾아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가 통일되는 그 원인이신데, 절대 가치와 의미가--곧 무조건적 **실체**가--궁극 이후까지 통일된 가운데, 최상으로, 심지어 궁극적으로,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총괄 힘 조직가들은 공간으로 나아가서, **만유의 아버지**로 인한 **낙원**의 끌어당김에 인력이 반응하도록 만들려고 공간 에너지를 동원하며; 그 후에 **창조주 아들**들이 거기로 오는데, 그들은 인력이_반응하는 이 세력을 인간거주 우주들 안으로 조직하고, 거기서 지성 피조물을 진화시키며, 이들은 **낙원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능한 신

impersonal activities of the unified and co-ordinated Deity associations of supremacy, ultimacy, and infinity — the Trinity of Trinities.

56:9.6 (645.1) God the Father is discernible on all levels from the finite to the infinite, and though his creatures from Paradise to the evolutionary worlds have variously perceived him, onl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know him as an infinity.

56:9.7 (645.2) Spiritual personality is absolute only on Paradise, and the concept of the Absolute is unqualified only in infinity. Deity presence is absolute only on Paradise, and the revelation of God must always be partial, relative, and progressive until his power becomes experientially infinite in the space potenc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hile his personality manifestation becomes experientially infinite in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and while these two potentials of infinity become reality-unified in the Universal Absolute.

56:9.8 (645.3) But beyond subinfinite levels the three Absolutes are one, and thereby is infinity Deity-realized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der of existence ever self-realizes consciousness of infinity.

56:9.9 (645.4) Existential status in eternity implies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of infinity, even though another eternity may be required to experience self-realization of the experiential potentialities inherent in an infinity eternity — an eternal infinity.

56:9.10 (645.5) And God the Father is the personal source of all manifestations of Deity and reality to all intelligent creatures and spirit beings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personalities, now or in the successive universe experiences of the eternal future, no matter if you achieve the attainment of God the Sevenfold, comprehend God the Supreme, find God the Ultimate, or attempt to grasp the concept of God the Absolute, you will discover to your eternal satisfaction that in the consummation of each adventure you have, on new experiential levels, rediscovered the eternal God — the Paradise Father of all universe personalities.

56:9.11 (645.6) The Universal Father is the explanation of universal unity as it must be supremely, even ultimately, realized in the postultimate unity of absolute values and meanings — unqualified Reality.

56:9.12 (645.7) The Master Force Organizers go out into space and mobilize its energies to become gravity responsive to the Paradise pu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ubsequently there come the Creator Sons, who organize these gravity-responding forces into inhabited universes and therein evolve intelligent creatures who receive unto themselves the spirit of the Paradise Father

성 속성에서든지 **아버지**와 비슷하게 되려고 나중
에 **아버지**를 향해 상승한다.

낙원의 창조적 세력이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하여 진행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력 지배 속에 있는 영토의 계속된 확장을 예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성 피조물의 끊임없는 증식을 예시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앞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즉 **낙원**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온갖 우주는 전부 통합돼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격은 하나다. 모든 수준의 에너지와 모든 국면의 인격이 조화된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물과 존재는 **낙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만유 안에 계시며,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10.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들이 초기 단계로부터 일곱째 시기로 진보하면, **창조주 아들**을 찬미하는 것을 비롯해 **낙원 아버지**께 경배 드리기가 지, 그 세계들은 **칠중 하나님**의 실체가 실현되는 것을 연달아 파악한다. 그런 세계의 역사에서, 이어지는 일곱째 단계 내내, 계속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지존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성장하며, 한편 **궁극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역이 실체임을 막연히 식별한다.

이 영광스런 시기 내내, 계속 진보하는 필사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신격**의 요소들을--곧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더 낮게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깨닫기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 물질, 및 영에서 **하나님**을 식별하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사자가 이렇게 탐구할 때, 그는 철학, 우주론, 및 신성에 대한 체험적 연구에 점점 더 열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너희는 어느 정도 철학을 파악하고, 경배와 사회봉사 그리고 개인의 영적 체험 속에서 신성을 납득하지만, 너희는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곧 우주론을--, 너무 종종 사람의 미숙한 예술적 노력을 연구하는 데 제한시킨다. 아름다움, 즉 예술은 주로 대조되는 것들을 통합시키는 문제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필수다. 최고의 아름다움, 즉 순수 예술의 절정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차이 나는 시공우주 양 극단을 통합시키는 극적인 사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함과 **하나님**이 사람을--곧 **창조주**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피조물을-- 발견함, 바로 이것이 최상으로 아름다운 숭고한 성취, 즉 시공우주 예술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물론이라는 무신론은, 추함의 극치,

and subsequently ascend to the Father to become like him in all possible divinity attributes.

56:9.13 (646.8) The ceaseless and expanding march of the Paradise creative forces through space seems to presage the ever-extending domain of the gravity grasp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never-ending multiplication of varied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who are able to love God and be loved by him, and who, by thus becoming God-knowing, may choose to be like him, may elect to attain Paradise and find God.

56:9.14 (646.1)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ltogether unified. God is one in power and personality. There is co-ordination of all levels of energy and all phases of personality. Philosophically and experientially, in concept and in reality, all things and beings center in the Paradise Father. God is all and in all, and no things or beings exist without him.

10. TRUTH, BEAUTY, AND GOODNESS

56:10.1 (646.2) As the worlds settled in life and light progress from the initial stage to the seventh epoch, they successively grasp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God the Sevenfold, ranging from the adoration of the Creator Son to the worship of his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e continuing seventh stage of such a world's history the ever-progressing mortals grow in the knowledge of God the Supreme, while they vaguely discern the reality of the overshadowing ministry of God the Ultimate.

56:10.2 (646.3) Throughout this glorious age the chief pursuit of the ever-advancing mortals is the quest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a fuller realization of the comprehensible elements of Deity — truth, beauty, and goodness. This represents man's effort to discern God in mind, matter, and spirit. And as the mortal pursues this quest, he finds himself increasingly absorbed in the experiential study of philosophy, cosmology, and divinity.

56:10.3 (646.4) Philosophy you somewhat grasp, and divinity you comprehend in worship, social service, and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but the pursuit of beauty — cosmology — you all too often limit to the study of man's crude artistic endeavors. Beauty, art, is largely a matter of the unification of contrasts. Variety is essential to the concept of beauty. The supreme beauty, the height of finite art, is the drama of the unification of the vastness of the cosmic extremes of Creator and creature. Man finding God and God finding man — the creature becoming perfect as is the Creator — that is the supernal achievement of the supremely beautiful, the attainment of the apex of cosmic art.

56:10.4 (646.5) Hence materialism, atheism, is the maximization of ugliness, the climax of the finite

즉 아름다움의 정반대가 유한계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선재{先在}하는 조화로운 실체로부터 이미 태어난 변화들이 통합되어 펼쳐지는 광경 속에 있다.

우주론 수준의 사고{思考}에 도달하는 데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호기심. 조화에 대한 배고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새로운 수준의 조화로운 시공우주 관계를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2. 심미적 감상. 아름다움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수준의 실체에서 창조적으로 형태화되는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공감하는, 계속_향상하는 식견.

3. 윤리 감수성.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신격**과 만물의 관계에서 신성의 선함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영원히 타당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만들며; 따라서 우주론조차 신성한 실체의 가치를 추구하도록--곧 **하나님**을_의식하도록-- 인도한다.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들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납득하기에 아주 충분할 만큼 관심을 갖는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들에게 **신격**이 주는 계시를, 이런 우수한 가치기준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의 중요성이 필사 인간의 지적 및 영적 본성 모두에게 호소하게 만든다. 우주의 아름다움은 시공우주 창조계에서 조화로운 관계와 순환을 포함하며;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지성적인 호소이고, 물질 우주를 단일화해서 동시에 납득하도록 안내한다. 신성한 선함은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정신에게 계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계시는, 유한한 정신에게 감지되고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영적 수준, 바로 그 문턱까지 높아질 것이다.

진리는 과학과 철학의 기초이며, 종교의 지적 근거를 제시한다. 아름다움은, 예술, 음악, 및 모든 인간 체험의 의미심장한 리듬을 뒷받침한다. 선함은, 윤리, 도덕, 및 종교의 감각을--곧 체험에 의거한 완전성_갈망을-- 포함한다.

아름다움이 실존하는 것은, 점진적 진화라는 사실이 **지존자 정신**의 지배를 표시하는 만큼 분명하게, 감상할 줄 아는 피조물 정신이 현존함을 암시한다. 아름다움이란,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체의 광범한 다양성이 조화롭게 시_공간에서 합성된 것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은 모두, 선재{先在}하는 영원한 하나됨에서 유래된다.

선{善}이란, 다양한 수준에서 신성한 완전성의 상대적 가치를 정신이 인식하는 것이다. 선을 인식한다는 것은, 도덕적 상태의 정신, 즉 선과 악 사이를 분간하는 역량을 인격있는 정신이 가졌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선을 소유함, 즉 위대함을, 실체적인 신성{神性}에 도달한 정도를 재는 척도다.

antithesis of the beautiful. Highest beauty consists in the panorama of the unification of the variations which have been born of pre-existent harmonious reality.

56:10.5 (646.6) The attainment of cosmologic levels of thought includes:

56:10.6 (646.7) 1. *Curiosity*. Hunger for harmony and thirst for beauty. Persistent attempts to discover new levels of harmonious cosmic relationships.

56:10.7 (646.8) 2. *Aesthetic appreciation*. Love of the beautiful and ever-advancing appreciation of the artistic touch of all creative manifestations on all levels of reality.

56:10.8 (646.9) 3. *Ethic sensitivi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ruth the appreciation of beauty leads to the sense of the eternal fitness of those things which impinge upon the recognition of divine goodness in Deity relations with all beings; and thus even cosmology leads to the pursuit of divine reality values — to God-consciousness.

56:10.9 (646.10)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so fully concerned with the comprehens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because these quality values embrace the revelation of Deity to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The meanings of eternal truth make a combined appeal to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natures of mortal man. Universal beauty embraces the harmonious relations and rhythms of the cosmic creation; this is more distinctly the intellectual appeal and leads towards unified and synchronous comprehension of the material universe. Divine goodness represents the revelation of infinite values to the finite mind, therein to be perceived and elevated to the very threshold of the spiritual level of human comprehension.

56:10.10 (647.1) Truth is the basis of science and philosophy, present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religion. Beauty sponsors art, music, and the meaningful rhythms of all human experience. Goodness embraces the sense of ethics, morality, and religion — experiential perfection-hunger.

56:10.11 (647.2) The existence of beauty implies the presence of appreciative creature mind just as certainly as the fact of progressive evolution indicates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Mind. Beauty is the intellectual recognition of the harmonious time-space synthesis of the far-flung diversification of phenomenal reality, all of which stems from pre-existent and eternal oneness.

56:10.12 (647.3) Goodness is the mental recognition of the relative values of the diverse levels of divine perfection. The recognition of goodness implies a mind of moral status, a personal mind with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good and evil. But the possession of goodness, greatness, is the measure of real divinity attainment.

참된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진리와 오류 사이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정신임을 암시한다. **유란시아**의 인간 정신에게 주어진 증여되는 **진리의 영**은 진리에 대해--곧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상승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한다.

어떤 전자(電子), 사고(思考), 또는 영이 일으키는 어떤 충동이든지, 우주 전체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다. 오직 죄만이, 정신적 및 영적 수준에서 저항하는, 고립되고 악한 범죄다. 우주는 하나의 전체이며; 어떤 사물 또는 존재도 고립돼서 존재하거나 살지 않는다. 자아_실현은 그것이 반사회적일 때 잠재적으로 악하다. 이 말은 정확한 사실인데: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 시공우주와 사귀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격 통합이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장 큰 자가 되려거든,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

심지어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도--곧 정신, 물질, 및 영의 우주에 사람이 충명하게 접근하는 것도-- 신성한 최고의 **이상(理想)**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 속으로 혼합돼야 한다. 필사자 인격이 인간의 체험을 물질, 정신, 및 영과 통합하듯이, 이 신성한 최고의 **이상(理想)**은, **지존성** 안에서 능력으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격화된다.

어떤 주어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모든 통찰은, 그 전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관계를 충명하게 파악하기를 요구하며; 이것은 우주에서 창조된 부분들과 **창조적 전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격**은 보편적이고 영원히 달성할 초월적인 목표, 심지어 무한한 목표다.

우주의 아름다움은, 물질 창조에서 **낙원** 섬이 반사(反射)된 모습을 감지하는 것이며, 한편 영원한 진리는 **낙원 아들**들이 특별히 베푸는 사역인데, 그들은 필사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진리의 영**을 부여한다. 신(神)의 선함은, **무한한 영**에 속하는 다양한 인격체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사역에서 더 완전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 특성 전체의 총합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 **아버지**이심을 사람이 감지한 것이다.

물리적 물질은 절대 **신격**들이 가진 **낙원** 에너지와_광채가 시_공간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진리의 의미는 **신격**의 영원한 말씀이 필사자의_지능에 끼친 간접영향이다--최상의 개념들을 시_공간 세계가 납득하는 것이다. 신성의 선한 가치는, 진화하는 구체에 사는 시_공간의 유한한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 인격체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사역이다.

신성의 의미 있는 이런 실체 가치는, 인격자를 가진 각 피조물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신성한 사랑으로서 섞인다. 이런 가치는 신성한 자비로서 **아들** 및 그의 **아들**들 안에 조화돼 있다. 그들은,

56:10.13 (647.4) The recognition of true relations implies a mind competent to discriminate between truth and error. The bestowal Spirit of Truth which invests the human minds of Urantia is unerringly responsive to truth — the living spirit relationship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as they are co-ordinated in the eternal ascent Godward.

56:10.14 (647.5) Every impulse of every electron, thought, or spirit is an acting unit in the whole universe. Only sin is isolated and evil gravity resisting on the mental and spiritual levels. The universe is a whole; no thing or being exists or lives in isolation. Self-realization is potentially evil if it is antisocial. It is literally true: "No man lives by himself." Cosmic socialization constitutes the highest form of personality unification. Said Jesus: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let him become server of all."

56:10.15 (647.6) Even truth, beauty, and goodness — man's intellectual approach to the universe of mind, matter, and spirit — must be combined into one unified concept of a divine and supreme ideal. As mortal personality unifies the human experience with matter, mind, and spirit, so does this divine and supreme ideal become power-unified in Supremacy and then personalized as a God of fatherly love.

56:10.16 (647.7) All insight into the relations of the parts to any given whole requires an understanding grasp of the relation of all parts to that whole; and in the universe this means the relation of created parts to the Creative Whole. Deity thus becomes the transcendental, even the infinite, goal of universal and eternal attainment.

56:10.17 (647.8) Universal beauty is the recognition of the reflection of the Isle of Paradise in the material creation, while eternal truth is the special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who not only bestow themselves upon the mortal races but even pour out their Spirit of Truth upon all peoples. Divine goodness is more fully shown forth in the loving ministry of the manifold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But love, the sum total of these three qualities, is man's perception of God as his spirit Father.

56:10.18 (648.1) Physical matter is the time-space shadow of the Paradise energy-shining of the absolute Deities. Truth meanings are the mortal-intellect repercussions of the eternal word of Deity — the time-space comprehension of supreme concepts. The goodness values of divinity are the merciful ministries of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Universal, the Eternal, and the Infinite to the time-space finit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spheres.

56:10.19 (648.2) These meaningful reality values of divinity are blended in the Father's relation with each personal creature as divine love. They are co-ordinated in the Son and his Sons as divine

영과 그의 영 자녀들을 통해 신성한 사역으로서, 즉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자비의 묘사로서, 그들의 자질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제 가지 신성은 주로 능력과 인격이 합성된 **지존 하신 분**으로서 나타난다. **칠중 하나님**이, 상승하는 일곱 수준에서 신성한 의미와 가치기준의 일곱 가지 서로 다른 연합으로, 이런 신성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유한한 사람에게,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신성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신격**을 이렇게 사랑하고_납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삶에서 영적으로 표현될 때, 신성의 열매 즉:지성적 평화, 사회적 진보, 도덕적 만족, 영적 기쁨, 및 시공우주 지혜라는 열매가 맺힌다. 빛과 생명의 일곱째 단계에 있는 세계에서 선구적인 필사자는,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배웠다--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

사랑은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다.

[**네바돈 계시 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인 어떤 **멜기세덱**과 협력하여, **유란시아**를 방문 중인 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우주의 통일성에 관한 본 문서는,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열두 명의 **네바돈** 인격체로 구성된 한 위원회 집단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저자가 발표한 일련의 문서 가운데 25 번째 문서다. 우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34년에, 상관들이 인정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썼고 **영어**로 기록했다.

mercy. They manifest their qualities through the Spirit and his spirit children as divine ministry, the portrayal of loving mercy to the children of time. These three divinities are primarily manifested by the Supreme Being as power-personality synthesis. They are variously shown forth by God the Sevenfold in seven differing associations of divine meanings and values on seven ascending levels.

56:10.20 (648.3) To finite man truth, beauty, and goodness embrace the full revelation of divinity reality. As this love-comprehension of Deity finds spiritual expression in the lives of God-knowing mortals, there are yielded the fruits of divinity: intellectual peace, social progress, moral satisfaction, spiritual joy, and cosmic wisdom. The advanced mortals on a world in the seventh stage of light and life have learned that love is the greatest thing in the universe — and they know that God is love.

56:10.21 (648.4) Love is the desire to do good to others.

56:10.22 (648.5)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visiting on Urantia, by request of the Nebadon Revelatory Corps and in collaboration with a certain Melchizedek,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56:10.23 (648.6) This paper on Universal Unity is the twenty-fifth of a series of presentations by various authors, having been sponsored as a group by a commission of Nebadon personalities numbering twelve and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Mantutia Melchizedek. We indited these narratives and put them in the English language, by a technique authorized by our superiors, in the year 1934 of Urantia time.

유란시아 책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7편. 유란시아의 기원

⇨ 056

유란시아 책

05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7편
유란시아의 기원

섹션

소개

1. 앤드로노버 성운
2. 제1기 성운 단계
3. 제2기 성운 단계
4. 제3기와 제4기
5. 몬마시아--유란시아 태양계--의 기원
6.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7.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행성의 원시 대기
8. 지구 표면의 안정지진 활동기 세계적 대양과 최초의 대륙

PAPER 57
THE ORIGIN OF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ndronover Nebula
2. The Primary Nebular Stage
3. The Secondary Nebular Stage
4. Tertiary and Quartan Stages
5. Origin of Monmatia — The Urantia Solar System
6. The Solar System Stage — The Planet-Forming Era
7. The Meteoric Era — The Volcanic Age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8. Crustal Stabilization
The Age of Earthquakes
The World Ocean and the First Continent

소개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에 관한 **유란시아**의 기록을 얻으려고 **예루셈** 기록 보관소에서 발췌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현재 사용되는 용법으로--곧 365와 1/4일을 한 해로 정해 윤년을 두는 달력으로-- 환산해서 시간을 계산하도록 지시받았다. 대체로, 정확한 연대{年代}를 제시하려고 애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대는 기록에 남아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기에 더 나은 방법으로서, 가장 근접된 정수{整數}를 사용할 것이다.

어떤 사건을 100만 년 또는 200만 년 전으로 언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20세기 초기{初期}로부터 숫자를 정해서, 사건의 연대를 거꾸로 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 옛날의 사건들을 1,000년, 1,000,000년, 1,000,000,000년 등의 등간격{等間隔}에 발생한 것으로 서술할 것이다.

INTRODUCTION

57:0.1 (651.1) IN PRESENTING excerpts from the archives of Jerusem for the records of Urantia respecting its antecedents and early history, we are directed to reckon time in terms of current usage — the present leap-year calendar of 365¼ days to the year. As a rule, no attempt will be made to give exact years, though they are of record. We will use the nearest whole numbers as the better method of presenting these historic facts.

57:0.2 (651.2) When referring to an event as of one or two millions of years ago, we intend to date such an occurrence back that number of years from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of the Christian era. We will thus depict these far-distant events as occurring in even periods of thousands, m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1. 앤드로노버 성운

유란시아는 너희의 태양으로부터 기원됐고, 그 태양은 **앤드로노버** 성운으로부터 발생된 온갖 항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운은 한때 **네바돈** 지방우주의 물리적 동력과 물질 덩어리의 구성 부분으로서 조직됐다. 그리고 거대한 이 성운 자체는, **오르본톤** 연방우주{聯邦宇宙}에서, 까마득한 옛날에 공간의 우주 힘_축적량{蓄積量}으로부터 기원됐다.

이 사실이 시작되던 당시에는, 나중에 **앤드로노버** 성운으로 조직된 공간_에너지를, **낙원**의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이 오랫동안 온전하게 통제해 오고 있었다.

987,000,000,000년 전에, **오르본톤** 계통의 힘부{副}조직가와, 당시에 대리 검열관 811,307_번이 **우버사**로부터 시찰 나왔으며, 그때 **오르본톤** 동쪽 부분에 있는 어떤 구역에서, 공간 상태가 물질화 현상을 시도하기에 적합하게 됐다고, **태고 항존자**들에게 보고했다.

900,000,000,000년 전에, **평형을 관장하는 우버사 위원회**가 연방우주 정부에게 허가증을 발행했다는 것을 **우버사** 기록보관소가 입증하는데, 이 허가증은 811,307_번 검열관이 그 전에 선정했던 그 지역으로, 힘 조직가 한 명과 참모진을 보낼 수 있도록 인가했다. **오르본톤** 당국은, 이 잠재적 우주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새로운 물질적 창조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위임했다.

이런 허락이 기록된 것은, 힘 조직가와 참모진이 이미 **우버사**를 출발해서, **오르본톤**에 새로운 물리적 창조가 출현할 때 종결시킬 지도 모르는 연장된 그 활동에, 그들이 나중에 가담하게 돼있는 동쪽 공간 구역으로 긴 여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875,000,000,000년 전에, 876,926_번의 거대한 **앤드로노버** 성운이 정식으로 창시됐다. 결국 이 방대한 공간의 회오리바람으로 확대될 에너지 소용돌이를 개시하는 데에는, 오직 힘 조직가와 연락 참모의 참여만 필요했다. 그런 성운 회전이 시작된 후에는, 활기찬 힘 조직가들이 회전 판 평면의 수직{垂直} 위치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되며, 이 시간 후로는, 에너지의 선천적 특성들이 그런 새로운 물리적 체계를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진화시키게 돼있다.

이 무렵부터, 이야기는 연방우주 인격체들의 활동으로 옮겨간다. 실질적으로 그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은 이 시점{時點}부터다--**낙원** 힘 조직가들이,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동력 지휘자들과 물리 통제관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_에너

1. THE ANDRONOVER NEBULA

57:1.1 (651.3) Urantia is of origin in your sun, and your sun is one of the multifarious offspring of the Andronover nebula, which was onetime organized as a component part of the physical power and material matter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this great nebula itself took origin in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long, long ago.

57:1.2 (651.4)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is recital, the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of Paradise had long been in full control of the space-energies which were later organized as the Andronover nebula.

57:1.3 (651.5) 987,000,000,000 years ago associate force organizer and then acting inspector number 811,307 of the Orvonton series, traveling out from Uversa, reported to the Ancients of Days that space conditions were favorable for the initiation of materialization phenomena in a certain sector of the, then, easterly segment of Orvonton.

57:1.4 (651.6) 900,000,000,000 years ago, the Uversa archives testify, there was recorded a permit issued by the Uversa Council of Equilibrium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authorizing the dispatch of a force organizer and staff to the region previously designated by inspector number 811,307. The Orvonton authorities commissioned the original discoverer of this potential universe to execute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calling for the organization of a new material creation.

57:1.5 (652.1) The recording of this permit signifies that the force organizer and staff had already departed from Uversa on the long journey to that easterly space sector where they were subsequently to engage in those protracted activities which would terminate in the emergence of a new physical creation in Orvonton.

57:1.6 (652.2) 875,000,000,000 years ago the enormous Andronover nebula number 876,926 was duly initiated. Only the presence of the force organizer and the liaison staff was required to inaugurate the energy whirl which eventually grew into this vast cyclone of space. Subsequent to the initiation of such nebular revolutions, the living force organizers simply withdraw at right angles to the plane of the revolutionary disk, and from that time forward, the inherent qualities of energy insure the progressive and orderly evolution of such a new physical system.

57:1.7 (652.3) At about this time the narrative shifts to the functioning of the personalities of the superuniverse. In reality the story has its proper beginning at this point — at just about the time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are preparing to

지 상황을 조성하면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다.

2. 제1기 성운 단계

모든 진화하는 물질 창조계는, 회전하는 기체 상태의 성운으로부터 발생되며, 그런 제1기 성운들은 모두,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초기 시절 내내 회전한다. 그것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형을 이루게 되고, 항성을 조성하는 그 기능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종종 별 무리들로 귀착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숫자의 행성, 위성, 그리고 너희의 조그마한 태양계와 여러모로 닮은 비교적 작은 물질 집단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항성들로 귀착된다.

8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창조물은 **오르본톤**의 거대한 제1기 성운 가운데 하나로 잘 조성됐다. 근처에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접된 곳에서 창조된 성운들에 적용된 인력(引力) 추정치(推定値)는, **앤드로노버** 지역에서 공간에 물질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7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체계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속한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물질 체계의 동력 중심지들을 후원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홉 개의 물질 창조계에 물리 통제관들이 추가로 파견됐다. 이런 아득히 먼 옛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조계에 전달된 모든 물질은 바퀴 모양의 이런 거대한 공간 경계선 안에 가둬져 있었으며, 그것은 계속해서 소용돌이치다가, 최대 직경에 도달한 뒤에는, 점점 더 빨리 회전하면서 계속 응집되고 수축됐다.

6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에너지_활성화가 최고도에 달하는 기간이 됐으며; 그 성운은 최대 질량에 도달했다. 이때 그 성운은 납작한 접시 모양으로 거대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이었다. 이 시기는, 상이한 질량이 형성되고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초기 단계였다. 인력 및 기타 작용들이, 공간의 기체를 조직된 물질로 변환시키는 활동을 막 시작했다.

3. 제2기 성운 단계

그 거대한 성운이, 이제는 점차 소용돌이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멀리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에게도 확실하게 보일 정도가 됐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운의 자연스런 역사이며; 항성들이 형

withdraw, having made the space-energy conditions ready for the action of the power directo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2. THE PRIMARY NEBULAR STAGE

57:2.1 (652.4) All evolutionary material creations are born of circular and gaseous nebulae, and all such primary nebulae are circular throughout the early part of their gaseous existence. As they grow older, they usually become spiral, and when their function of sun formation has run its course, they often terminate as clusters of stars or as enormous suns surrounded by a varying number of planets, satellites, and smaller groups of matter in many ways resembling your own diminutive solar system.

57:2.2 (652.5) 8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creation was well established as one of the magnificent primary nebulae of Orvonton. As the astronomers of near-by universes looked out upon this phenomenon of space, they saw very little to attract their attention. Gravity estimates made in adjacent creations indicated that space materializations were taking place in the Andronover regions, but that was all.

57:2.3 (652.6) 7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system was assuming gigantic proportions, and additional physical controllers were dispatched to nine surrounding material creations to afford support and supply co-operation to the power centers of this new material system which was so rapidly evolving. At this distant date all of the material bequeathed to the subsequent creations was held within the confines of this gigantic space wheel, which continued ever to whirl and, after reaching its maximum of diameter, to whirl faster and faster as it continued to condense and contract.

57:2.4 (652.7) 600,000,000,000 years ago the height of the Andronover energy-mobilization period was attained; the nebula had acquired its maximum of mass. At this time it was a gigantic circular gas cloud in shape somewhat like a flattened spheroid. This was the early period of differential mass formation and varying revolutionary velocity. Gravity and other influences were about to begin their work of converting space gases into organized matter.

3. THE SECONDARY NEBULAR STAGE

57:3.1 (653.1) The enormous nebula now began gradually to assume the spiral form and to become clearly visible to the astronomers of even distant universes. This is the natural history of

성되고 우주가 구축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제2기 공간 성운이 대개 **소용돌이 현상**으로 관측된다.

그 일이 있던 먼 옛날에, 근처의 별 연구자들이 **앤드로노버** 성운의 이런 변질을 관측했을 때, 20세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방향을 우주 밖으로 돌리고, 가까이 있는 외부 공간에서, **현_시대에** 소용돌이치는 성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봤다.

최대 질량에 도달했을 즈음에, 기체 상태의 내용물에 대한 인력{引力}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기체 누출 단계, 즉 두 개의 거대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팔처럼 앞으로 뻗어 나가는 기체 유출이 계속 발생했으며, 그 기체 유출은, 모체{母體}가 되는 큰 덩어리의 반대편에서 기원{起源}됐다. 이런 거대한 중앙 중심의 빠른 회전은, 투사하는 두 개의 이 기체 기둥으로 하여금, 곧 소용돌이치는 모양이 되게 했다. 뻗어나가는 이 기둥들 가운데 일부분이 냉각된 후에 응고됨으로써, 결국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렇게 농축된 부분들은, 성운의 기체 구름 한 가운데 있는 공간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여러 체계와 하위 체계들의 물리적 물질이었고, 모체 바퀴의 인력 지배 속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 성운은 수축하기 시작했고,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 통제력이 더욱 감소했으며; 머지않아, 기체상태의 바깥쪽 구역들이, 이 성운의 핵심에 조밀하게 포집돼 있는 상태에서부터 실제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그리는 순회경로를 타고 공간 속으로 옮겨갔다가, 핵심 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순회경로를 마쳤으며, 그런 식으로 계속됐다. 그러나 이것은 성운의 진보에서 일시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 증가하는 회전 속도는, 곧 서로 독립적인 회로를 갖는 무수한 항성을 공간 속으로 쏘아냈다.

그리고 이것이 아득히 먼 옛날에 **앤드로노버**에서 일어났었다. 에너지 바퀴가 최고 확장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커졌고, 그리고 나서 응축 과정이 시작될 때, 점점 빨리 소용돌이쳤으며, 결국 결정적인 원심분리{遠心分離} 상태에 도달하여 엄청난 분산이 시작됐다.

5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에서 첫 항성이 탄생됐다. 타는 듯한 이 광채는 모체{母體} 인력장으로부터 이탈했고,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창조계에서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 궤도는 그 항성이 이탈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됐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항성들은 재빨리 구형{球形}의 모양을 갖췄으며, 우주의 별들처럼 길고 다사{多事}한 생애를 시작했다. 말기에 도달한 성운 핵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오르본톤** 항성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생겨났다. 이탈하는 이 항성들은 다채로운 기간을 거쳐서 진화하고, 나중에 우주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most nebulae; before they begin to throw off suns and start upon the work of universe building, these secondary space nebulae are usually observed as *spiral phenomena*.

57:3.2 (653.2) The near-by star students of that faraway era, as they observed this metamorphosis of the Andronover nebula, saw exactly what twentieth-century astronomers see when they turn their telescopes spaceward and view the present-age spiral nebulae of adjacent outer space.

57:3.3 (653.3) About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the maximum of mass, the gravity control of the gaseous content commenced to weaken, and there ensued the stage of gas escapement, the gas streaming forth as two gigantic and distinct arms, which took origin on opposite sides of the mother mass. The rapid revolutions of this enormous central core soon imparted a spiral appearance to these two projecting gas streams. The cooling and subsequent condensation of portions of these protruding arms eventually produced their knotted appearance. These denser portions were vast systems and subsystems of physical matter whirling through space in the midst of the gaseous cloud of the nebula while being held securely within the gravity grasp of the mother wheel.

57:3.4 (653.4) But the nebula had begun to contract, and the increase in the rate of revolution further lessened gravity control; and ere long, the outer gaseous regions began actually to escape from the immediate embrace of the nebular nucleus, passing out into space on circuits of irregular outline, returning to the nuclear regions to complete their circuits, and so on. But this was only a temporary stage of nebular progression. The ever-increasing rate of whirling was soon to throw enormous suns off into space on independent circuits.

57:3.5 (653.5) And this is what happened in Andronover ages upon ages ago. The energy wheel grew and grew until it attained its maximum of expansion, and then, when contraction set in, it whirled on faster and faster until, eventually, the critical centrifugal stage was reached and the great breakup began.

57:3.6 (653.6) 500,000,000,000 years ago the first Andronover sun was born. This blazing streak broke away from the mother gravity grasp and tore out into space on an independent adventure in the cosmos of creation. Its orbit was determined by its path of escape. Such young suns quickly become spherical and start out on their long and eventful careers as the stars of space. Excepting terminal nebular nucleuses, the vast majority of Orvonton suns have had an analogous birth. These escaping suns pass through varied periods of evolution and subsequent universe service.

4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성운의 재흡수 기간이 시작됐다. 모체 핵이 점차 확대되고 계속 응축됨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비교적 작은 항성 중에서 다수가 흡수됐다. 곧 이어서 성운이 응축되는 말기 국면이 시작됐는데, 이 기간은, 에너지와 물질이 거대한 공간 집합체들이 마지막으로 분리되기 전에 반드시 앞서는 기간이다.

낙원의 창조주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를 건설하는 모험 장소로, 붕괴하는 이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 시기에서 100만 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살빙톤**의 건축양식 세계들과, 행성들로 이뤄진 100개의 성좌 본부 집단이 거의 즉시로 개설됐다. 특별하게 창조된 세계들로 묶여진 이 무리들이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됐다. 지역 체계 본부 행성들은, 그때부터 약 50억 년 전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건설됐다.

3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항성 회로들이 잘 구축됐으며, 성운 체계는 물리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누리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미가엘**의 참모진이 **살빙톤**에 도착했고, **오르본톤**의 **우버사** 정부는 **네바돈** 지방우주를 물리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2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중앙 집합체, 즉 핵심 덩어리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서, 수축과 응집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목격됐다. 중앙에 있는 모체{母體}_항성 바퀴 가까이 있는 영역에 상대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외부 영역들은 더 안정되고 잘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새로 태어난 항성의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행성들은, 생명체가 이식되기에 적당할 만큼 이미 충분히 냉각됐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 전에 생명체가 거주하게 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다.

이제 **네바돈**의 완성된 우주 장치가 처음 작동하기 시작했고, **미가엘**의 창조물은 인간거주 우주로서, 그리고 진보하는 필사자가 상승하는 우주로서 **우버사**에 등록됐다.

100,000,000,000년 전에, 성운의 응축 장력{張力}이 극점{極點}에 도달했으며, 열에 의한 장력도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인력과 열이 대립되는 이 결정적 단계가 때로는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열이 인력을 이기게 되고, 항성이 분산{分散}되는 눈부신 장면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공간 성운의 제2기 생애는 마침표를 찍는다.

57:3.7 (653.7) 400,000,000,000 years ago began the recaptive period of the Andronover nebula. Many of the near-by and smaller suns were recaptured as a result of the gradual enlargement and further condensation of the mother nucleus. Very soon there was inaugurated the terminal phase of nebular condensation, the period which always precedes the final segregation of these immense space aggregations of energy and matter.

57:3.8 (654.1) It was scarcely a million years subsequent to this epoch that Michael of Nebadon, a Creator Son of Paradise, selected this disintegrating nebula as the site of his adventure in universe building. Almost immediately the architectural worlds of Salvington and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headquarters groups of planets were begun. It required almost one million years to complete these clusters of specially created worlds.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planets were constructed over a period extending from that time to about five billion years ago.

57:3.9 (654.2) 3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solar circuits were well established, and the nebular system was passing through a transient period of relative physical stability. About this time the staff of Michael arrived on Salvington, and the Uversa government of Orvonton extended physical recognition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57:3.10 (654.3) 200,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progression of contraction and condensation with enormous heat generation in the Andronover central cluster, or nuclear mass. Relative space appeared even in the regions near the central mother-sun wheel. The outer regions were becoming more stabilized and better organized; some planets revolving around the newborn suns had cooled sufficiently to be suitable for life implantation. The oldest inhabited planets of Nebadon date from these times.

57:3.11 (654.4) Now the completed universe mechanism of Nebadon first begins to function, and Michael's creation is registered on Uversa as a universe of inhabitation and progressive mortal ascension.

57:3.12 (654.5) 100,000,000,000 years ago the nebular apex of condensation tension was reached; the point of maximum heat tension was attained. This critical stage of gravity-heat contention sometimes lasts for ages, but sooner or later, heat wins the struggle with gravity, and the spectacular period of sun dispersion begins. And this marks the end of the secondary career of a space nebula.

4. 제3기와 제4기

4. TERTIARY AND QUARTAN STAGES

성운은, 제1기에는 회전하고;제2기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며;제3기에는 항성이 처음으로 분산되는 시기이며, 한편 제4기는 항성이 분산되는 둘째이자 마지막 주기를 포함하고, 모체의 핵은 구형{球形}의 성단{星團}으로서, 아니면 말기의 항성 체계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판 항성으로서 종결된다.

75,000,000,000년 전에, 이 성운은 그 항성_가족 단계 중에서 절정기에 도달했다. 이 시기는, 항성이 소실되는 첫 기간의 정점{頂點}에 해당했다. 이 항성들 대부분은 그 후로, 행성, 위성, 흑암섬, 혜성, 운석, 및 우주 먼지 구름으로 이뤄진 광대한 체계를 점유했다.

50,000,000,000년 전에, 항성이 분산되는 첫 기간이 완료됐으며;그 성운은 실존을 위한 제3 주기를 신속히 완료해 갔고, 그동안에 876,926개의 항성 체계가 생겨났다.

25,000,000,000년 전에, 성운 생애 중에서 제3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 목격됐으며, 근원이 되는 이 모체 성운에서 발생한 광범한 별 체계들의 조직과 상대적 안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응축하고 증가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은, 그 성운 잔존물들의 중앙 덩어리 속에서 여전히 계속됐다.

1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제4 주기가 시작됐다. 핵심_덩어리의 온도가 최고도에 달했으며;응축 과정이 임계점{臨界點}에 도달했다. 원래의 모체 핵은, 자체의 내부_열 응축 장력과, 둘러싸고 있는 독립된 항성계들로 인해서 증가되는 주기적 인력 작용의 혼합된 압력 아래서 진동하고 있었다. 둘째 성운 항성 주기를 시작하게 하는 핵 폭발이 임박하게 됐다. 성운 실재의 제4 주기가 막 시작되려고 했다.

8,000,000,000년 전에, 엄청난 말기{末期} 폭발이 시작됐다. 그런 우주적 격변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오직 외부에 있는 체계들만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런 마지막 항성 생성은, 거의 20억 년 동안 계속됐다.

7,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말기 붕괴의 절정이 관측됐다. 이것은 더 큰 말기 항성들이 절말에 이르는 기간이었고, 국지적인 물리적 교란의 정점이었다.

6,000,000,000년 전에, 말기의 분산이 종료됐고, 너희의 태양이 생겨났으며, 앤드로노버의 제2 항성가족 가운데 끝에서 56번째로 탄생됐다. 그 성운 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출되면서, 136,702개의 항성이 생성됐고, 그 대부분은 단독 궤도를 갖는다. 앤드로노버 성운에서 기원된 항성

57.4.1 (654.6) The primary stage of a nebula is circular; the secondary, spiral; the tertiary stage is that of the first sun dispersion, while the quartan embraces the second and last cycle of sun dispersion, with the mother nucleus ending either as a globular cluster or as a solitary sun functioning as the center of a terminal solar system.

57.4.2 (654.7) 75,000,000,000 years ago this nebula had attained the height of its sun-family stage. This was the apex of the first period of sun losses. The majority of these suns have since possessed themselves of extensive systems of planets, satellites, dark islands, comets, meteors, and cosmic dust clouds.

57.4.3 (654.8) 50,000,000,000 years ago this first period of sun dispersion was completed; the nebula was fast finishing its tertiary cycle of existence, during which it gave origin to 876,926 sun systems.

57.4.4 (654.9) 25,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completion of the tertiary cycle of nebular life and brought about the organization and relative stabilization of the far-flung starry systems derived from this parent nebula. But the process of physical contraction and increased heat production continued in the central mass of the nebular remnant.

57.4.5 (655.1) 10,000,000,000 years ago the quartan cycle of Andronover began. The maximum of nuclear-mass temperature had been attained; the critical point of condensation was approaching. The original mother nucleus was convulsing under the combined pressure of its own internal-heat condensation tension and the increasing gravity-tidal pull of the surrounding swarm of liberated sun systems. The nuclear eruptions which were to inaugurate the second nebular sun cycle were imminent. The quartan cycle of nebular existence was about to begin.

57.4.6 (655.2) 8,000,000,000 years ago the terrific terminal eruption began. Only the outer systems are safe at the time of such a cosmic upheaval.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nebula. This final sun disgorgement extended over a period of almost two billion years.

57.4.7 (655.3) 7,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height of the Andronover terminal breakup. This was the period of the birth of the larger terminal suns and the apex of the local physical disturbances.

57.4.8 (655.4) 6,000,000,000 years ago marks the end of the terminal breakup and the birth of your sun, the fifty-sixth from the last of the Andronover second solar family. This final eruption of the nebular nucleus gave birth to 136,702 suns, most of them solitary orbs. The total number of suns and sun systems having origin in the Andronover

과 항성계는 총 1,013,628개다. 항성계를 가진 항성은 1,013,572개다.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이 없으나, 우주의 이 모체 구름에서 생성된 많은 항성으로, 그리고 그 행성가족으로 살아남아 있다. 이 거대한 성운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핵심 부분은, 붉은 빛을 내면서 여전히 불타고 있고, 165개의 세계들로 이뤄진 잔여 행성가족에게, 수그러든 빛과 열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막강한 두 세대에 걸쳐서 빛의 지배자들을 낳은 고색창연한 이 모체{母體} 주위를 돌고 있다.

5. 몬마시아--유란시아 태양계--의 기원

5,000,000,000년 전에, 너희의 태양이 비교적 독립적인 불타는 구체를 이루고, 가까이서 돌고 있는 공간 물질 대부분, 즉 그 자체의 생성에 기여했던 마지막 격변에서 생긴 잔여물이, 자체에게로 모이도록 했다.

오늘날,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은 비교적 안정을 이룩했지만, 11.5년 주기{週期}의 태양 흑점은, 그것이 청년기에 변광성{變光星}이었음을 나타낸다. 너희의 태양은 초기에는 계속 응축했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그 표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켰었다. 이런 거대한 융기{隆起}가, 변화하는 밝기의 주기를 완료하기까지는, 3.5일이 소요됐다. 이런 가변 상태, 즉 이 주기적 변동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부닥치게 될 어떤 외부 영향에 아주 잘 반응하게 했다.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의 행성가족, 즉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속된 태양계의 이름인, **몬마시아**의 독특한 기원{起源}을 위해서 준비된 지역 공간의 무대가 그렇게 설치됐었다. **오르본톤**에 소속된 행성 체계들 중에서 비슷한 기원을 갖는 것은 1퍼센트 미만이다.

4,500,000,000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독립된 이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큰 이 체계의 중심은, 고체 상태이고, 심하게 축적되고,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는 어둡고 거대한 천체였다.

앙고나가 태양으로 더 접근하여, 태양이 진동하면서 최고로 확장되는 순간,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이뤄진 기둥들이, 태양의 거대한 허처럼 공간 속으로 분출돼 나왔다. 허 모양으로 불타는 이 기체 기둥들이 처음에는 반드시 태양 속으로 되돌아갔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접근하면서, 그 거대한 방문객의 인력 작용이 너무 커지자, 허 모양의 이 기체 기둥들이 어떤 지점에서 떨어져 나갔고, 뿌리 부분은 태양으로 되돌아갔지만, 바깥 부분은, 물체의 독립된 덩어리들, 즉 태양계의 운석을 형성할 만큼 떨어져 나가게 됐으며, 그것들은 자체

nebula was 1,013,628. The number of the solar system sun is 1,013,572.

57:4.9 (655.5) And now the great Andronover nebula is no more, but it lives on in the many suns and their planetary families which originated in this mother cloud of space. The final nuclear remnant of this magnificent nebula still burns with a reddish glow and continues to give forth moderate light and heat to its remnant planetary family of one hundred and sixty-five worlds, which now revolve about this venerable mother of two mighty generations of the monarchs of light.

5. ORIGIN OF MONMATIA — THE URANTIA SOLAR SYSTEM

57:5.1 (655.6) 5,000,000,000 years ago your sun was a comparatively isolated blazing orb, having gathered to itself most of the near-by circulating matter of space, remnants of the recent upheaval which attended its own birth.

57:5.2 (655.7) Today, your sun has achieved relative stability, but its eleven and one-half year sunspot cycles betray that it was a variable star in its youth. In the early days of your sun the continued contraction and consequent gradual increase of temperature initiated tremendous convulsions on its surface. These titanic heaves required three and one-half days to complete a cycle of varying brightness. This variable state, this periodic pulsation, rendered your sun highly responsive to certain outside influences which were to be shortly encountered.

57:5.3 (655.8) Thus was the stage of local space set for the unique origin of *Monmatia*, that being the name of your sun's planetary family, the solar system to which your world belongs. Less than one per cent of the planetary systems of Orvonton have had a similar origin.

57:5.4 (655.9) 4,500,000,000 years ago the enormous Angona system began its approach to the neighborhood of this solitary sun. The center of this great system was a dark giant of space, solid, highly charged, and possessing tremendous gravity pull.

57:5.5 (656.1) As Angona more closely approached the sun, at moments of maximum expansion during solar pulsations, streams of gaseous material were shot out into space as gigantic solar tongues. At first these flaming gas tongues would invariably fall back into the sun, but as Angona drew nearer and nearer, the gravity pull of the gigantic visitor became so great that these tongues of gas would break off at certain points, the roots falling back into the sun while the outer sections would become detached to form independent bodies of matter, solar meteorites,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곧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태양의 분출은 점점 더 심화됐으며; 점점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변 공간에서 맴도는 독립적 덩어리들을 이루게 됐다. 이런 상황은 **앙고나**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50만 년 동안 계속 발전했으며; 태양은 그 후에 주기적인 내부 격변 가운데 하나로 인해서, 부분적인 분열을 경험했으며; 그 반대편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질이 일제히 분출됐다. **앙고나**가 있는 쪽에서는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태양 기체가 분출됐고, 오히려 양쪽 끝을 향했으며, 가운데에서는 현저하게 부풀어 올랐고, 태양의 직접 인력 통제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됐다.

태양에서 이렇게 분리된 큰 기둥 모양의 이 태양 기체는, 나중에 태양계에 속한 12개의 행성으로 진화했다. 이 거대한 태양계 선조(先祖)의 분출에 주기적으로 일치되도록, 반대편에서 반응하여 유출된 기체는, 그 후로 태양계의 운석과 공간 먼지로 응축됐지만, 이 물체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이, 나중에 **앙고나** 체계가 멀리 있는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태양의 인력에 다시 붙잡혔다.

태양계 행성들의 조상 물질, 그리고 소행성과 운석이 되어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는 했더라도, **앙고나**는 이런 태양계의 물질 가운데 어떤 것도 자체를 위해 확보하지 못했다. 방문하던 그 체계는, 태양의 내용물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흡수할 정도로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날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시키는 데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했었다.

안쪽에 있는 5개의 행성과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행성은, **앙고나**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거대한 중력 팽창이 점차 끝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차가워지고 응축되는 핵들로부터 곧 소규모의 형태를 갖췄으며,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비교적 부피가 크고 부풀어 오르는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됐다. **토성**과 **목성**은 **앙고나**로부터 유실(遺失)된 대부분의 물질을 초기에 강력한 인력 작용으로 흡수했고, **토성**과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역행(逆行)하는 움직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열된 태양 기체의 거대한 기둥 한가운데에서 생성된 **토성**과 **목성**은, 매우 높은 열을 간직한 태양 물질로 이뤄졌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발했고, 많은 양의 열을 내뿜었으며; 독립된 천체로 형성된 후에 잠시 동안, 제2의 태양 역할을 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이 두 행성은, 오늘날까지도 기체 상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완성된 응축이나 응결(凝結)을 이룰 정도로 냉각되지 못한 상

which immediately started to revolve about the sun in elliptical orbits of their own.

57:5.6 (656.2) As the Angona system drew nearer, the solar extrusions grew larger and larger; more and more matter was drawn from the sun to become independent circulating bodies in surrounding space. This situation developed for abou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until Angona made its closest approach to the sun; whereupon the sun, in conjunction with one of its periodic internal convulsions, experienced a partial disruption; from opposite sides and simultaneously, enormous volumes of matter were disgorged. From the Angona side there was drawn out a vast column of solar gases, rather pointed at both ends and markedly bulging at the center, which became permanently detached from the immediate gravity control of the sun.

57:5.7 (656.3) This great column of solar gases which was thus separated from the sun subsequently evolved into the twelve planets of the solar system. The repercussional ejection of gas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sun in tidal sympathy with the extrusion of this gigantic solar system ancestor, has since condensed into the meteors and space dust of the solar system, although much, very much, of this matter was subsequently recaptured by solar gravity as the Angona system receded into remote space.

57:5.8 (656.4) Although Angona succeeded in drawing away the ancestral material of the solar system planets and the enormous volume of matter now circulating about the sun as asteroids and meteors, it did not secure for itself any of this solar matter. The visiting system did not come quite close enough to actually steal any of the sun's substance, but it did swing sufficiently close to draw off into the intervening space all of the material comprising the present-day solar system.

57:5.9 (656.5) The five inner and five outer planets soon formed in miniature from the cooling and condensing nucleuses in the less massive and tapering ends of the gigantic gravity bulge which Angona had succeeded in detaching from the sun, while Saturn and Jupiter were formed from the more massive and bulging central portions. The powerful gravity pull of Jupiter and Saturn early captured most of the material stolen from Angona as the retrograde motion of certain of their satellites bears witness.

57:5.10 (656.6) Jupiter and Saturn, being derived from the very center of the enormous column of superheated solar gases, contained so much highly heated sun material that they shone with a brilliant light and emitted enormous volumes of heat; they were in reality secondary suns for a short period after their formation as separate space bodies. These two largest of the solar system planets have remained largely gaseous to

태에 있다.

기체에서 응축된 다른 10개의 행성들의 핵은, 곧 응결 상태에 도달했으며, 가까운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을 점점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중(二重) 기원을 갖게 됐는데: 즉 기체에서 응축된 핵과, 나중에 엄청난 양의 운석을 흡수함으로써 증가된 부분이다. 정말로 그것들은 여전히 운석을 흡수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행성들은, 모체인 태양의 적도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데, 그 행성들이 태양의 회전으로 던져졌더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태양의 적도 평면과 적지 않은 각도를 이뤄 유지하고 있는, **앙고나**의 태양 분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앙고나가 태양의 물질 가운데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동안, 태양은 때때로 접근해 오는 우주 체계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끌어 당겨서 태양계 행성들에게 덧붙여 줌으로써 변형을 일으키게 했다. **앙고나**의 강한 인력장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는 행성 무리는 거대한 흑암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으며; 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분출된 직후에, 그리고 **앙고나**가 아직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안에, **앙고나** 체계의 주요 행성 중에서 세 개가 육중한 태양계의 조상에게 너무 근접해서 돌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인력 작용은 이들 세 종속체(從屬體)들로 하여금, **앙고나**의 인력 한계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가서 하늘에 떠돌아다니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태양으로부터 분출된 태양계의 물질 전체는, 처음부터 균일한 방향의 궤도 곡선을 그리면서 돌았으며, 세 개의 이 외래 천체의 침입을 받지 않았더라면, 모든 태양계 물체는 여전히 같은 방향의 궤도 운동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앙고나**에 소속됐던 세 종속체의 영향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힘을 태양계에 끼쳤으며, 그 결과로 역행(逆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다. 어떤 우주 체계에서든지, 역행 운동은 항상 우연히 발생되며, 반드시 외부 천체들이 충돌하는 충격의 결과로 빚어진다. 그런 충돌 작용이 역행 움직임을 항상 가져오지는 않지만,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결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6.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태양계가 생성된 후에, 태양의 분출이 점차

this day, not even yet having cooled off to the point of complete condensation or solidification.

57.5.11 (656.7) The gas-contraction nucleuses of the other ten planets soon reached the stage of solidification and so began to draw to themselves increasing quantities of the meteoric matter circulating in near-by space. The worlds of the solar system thus had a double origin: nucleuses of gas condensation later on augmented by the capture of enormous quantities of meteors. Indeed they still continue to capture meteors, but in greatly lessened numbers.

57.5.12 (657.1) The planets do not swing around the sun in the equatorial plane of their solar mother, which they would do if they had been thrown off by solar revolution. Rather, they travel in the plane of the Angona solar extrusion, which existed at a considerable angle to the plane of the sun's equator.

57.5.13 (657.2) While Angona was unable to capture any of the solar mass, your sun did add to its metamorphosing planetary family some of the circulating space material of the visiting system. Due to the intense gravity field of Angona, its tributary planetary family pursued orbits of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dark giant; and shortly after the extrusion of the solar system ancestral mass and while Angona was yet in the vicinity of the sun, three of the major planets of the Angona system swung so near to the massive solar system ancestor that its gravitational pull, augmented by that of the sun, was sufficient to overbalance the gravity grasp of Angona and to permanently detach these three tributaries of the celestial wanderer.

57.5.14 (657.3) All of the solar system material derived from the sun was originally endowed with a homogeneous direction of orbital swing, and had it not been for the intrusion of these three foreign space bodies, all solar system material would still maintain the same direction of orbital movement. As it was, the impact of the three Angona tributaries injected new and foreign directional forces into the emerging solar system with the resultant appearance of retrograde motion. Retrograde motion in any astronomic system is always accidental and always appears as a result of the collisional impact of foreign space bodies. Such collisions may not always produce retrograde motion, but no retrograde ever appears except in a system containing masses which have diverse origins.

6. THE SOLAR SYSTEM STAGE—THE PLANET-FORMING ERA

57.6.1 (657.4) Subsequent to the birth of the solar

감소되는 현상이 한동안 나타났다. 그 다음 50만 년 동안, 태양에서 주변 공간으로 분출되는 물질의 양은 점점 감소됐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궤도를 도는 이 초기 시절에, 주변의 천체(天體)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모체(母體)인 태양은 이런 운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재 흡수할 수 있었다.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의 회전 속도가, 주기적 변동 마찰 때문에 먼저 감소됐다. 그런 인력 영향이 행성_축(軸)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행성 궤도들이 안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축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행성이 언제나 점점 더 천천히 돌게 했고, 행성의 반쪽 부분이 항상 태양 또는 더 큰 행성을 향하도록 했는데, 이런 현상은 **수성**과 달이 보여주는 바와 같으며,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유란시아** 쪽으로 향하면서 돌고 있다.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달과 지구의 견제력이 균등하게 되면, 지구도 항상 한쪽 면만 달을 향해 될 것이며, 하루와 한 달이 --약 47일 기간으로-- 비슷해질 것이다. 그런 궤도 안정이 달성되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견제력은 거꾸로 작용될 것이며, 달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성이 행성 쪽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먼 훗날에, 달은 지구로부터 약 11,000 마일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며, 지구의 인력 작용이 달을 붕괴시킬 것이고, 이런 주기적 변동 인력 폭발이 달을 작은 입자들로 산산조각내서,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 모양의 물질 띠를 이루어, 지구 주변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점차 운석으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천체들의 크기와 비중이 동일한 상태라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천체가 비중에서는 비슷하나 크기에서 서로 다르고, 작은 것이 큰 것에 점점 접근한다면, 그 궤도 반경이 큰 천체 반지름의 2.5배에 도달했을 때, 작은 천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에서 큰 물체들 간의 충돌은 정말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인력의_주기적_변동으로 인한 작은 물체의 폭발(爆發)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유성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현상은, 가까이 있는 큰 천체가, 주기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파괴된 천체의 큰 덩어리들 때문에 일어난다. **토성**의 띠들은 파괴된 위성의 파편이다. **목성**을 돌고 있는 달들 중에서 한 개가 현재 주기적 변동의 분열 임계(臨界) 지점에 거의 도달해 있으며, 수백 만 년 내에 그 행성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주기적 변동 인력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 태양계의 다섯째 행성이 불규칙적인 궤도를 돌다가, 주기적으로 **목성**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기적 변동 인력 파괴의 임계 지점에 들어가게 됐으며, 신속히 분쇄됐고, 오늘날의 소행

system a period of diminishing solar disgorgement ensued. Decreasingly, for another five hundred thousand years, the sun continued to pour forth diminishing volumes of matter into surrounding space. But during these early times of erratic orbits, when the surrounding bodies made their nearest approach to the sun, the solar parent was able to recapture a large portion of this meteoric material.

57:6.2 (657.5) The planets nearest the sun were the first to have their revolutions slowed down by tidal friction. Such gravitational influences als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planetary orbits while acting as a brake on the rate of planetary-axial revolution, causing a planet to revolve ever slower until axial revolution ceases, leaving one hemisphere of the planet always turned toward the sun or larger body, as is illustrated by the planet Mercury and by the moon, which always turns the same face toward Urantia.

57:6.3 (657.6) When the tidal frictions of the moon and the earth become equalized, the earth will always turn the same hemisphere toward the moon, and the day and month will be analogous — in length about forty-seven days. When such stability of orbits is attained, tidal frictions will go into reverse action, no longer driving the moon farther away from the earth but gradually drawing the satellite toward the planet. And then, in that far-distant future when the moon approaches to within about eleven thousand miles of the earth, the gravity action of the latter will cause the moon to disrupt, and this tidal-gravity explosion will shatter the moon into small particles, which may assemble about the world as rings of matter resembling those of Saturn or may be gradually drawn into the earth as meteors.

57:6.4 (658.1) If space bodies are similar in size and density, collisions may occur. But if two space bodies of similar density are relatively unequal in size, then, if the smaller progressively approaches the larger, the disruption of the smaller body will occur when the radius of its orbit becomes less than two and one-half times the radius of the larger body. Collisions among the giants of space are rare indeed, but these gravity-tidal explosions of lesser bodies are quite common.

57:6.5 (658.2) Shooting stars occur in swarms because they are the fragments of larger bodies of matter which have been disrupted by tidal gravity exerted by near-by and still larger space bodies. Saturn's rings are the fragments of a disrupted satellite. One of the moons of Jupiter is now approaching dangerously near the critical zone of tidal disruption and, within a few million years, will either be claimed by the planet or will undergo gravity-tidal disruption. The fifth planet of the solar system of long, long ago traversed an irregular orbit, periodically making closer and closer

성 무리가 됐다.

4,000,000,000년 전에, **목성**과 **토성**의 체계들이 조직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으며, 이것들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크기가 계속 커진 자체의 달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관측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계속해서 운석을 흡수하는 결과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500,000,000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의 응축된 핵들이 잘 형성됐으며, 대다수의 달의 중심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비교적 더 작은 위성들 가운데 더러는 나중에 합쳐져서 오늘날과 같은 비교적 큰 달들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는 행성들이 조직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3,000,000,000년 전에, 태양계는 오늘날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됐다. 그 행성과 위성들은, 엄청난 비율로 떨어지는 운석으로 인해 계속해서 덩치가 커졌다.

이 무렵에, 너희의 태양계가 **네바돈**의 물리 등록부에 기재됐고, **몬마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2,500,000,000년 전에, 행성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 **유란시아**는 현재 부피의 10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잘 발달된 구체를 이뤘으며, 증가되는 운석으로 인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이런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계열의 진화 세계를 형성하는 데 정상적인 부분이며, 시간세계에서 생명체가 모험을 하도록 준비된 그런 공간 세계들이, 물리적 진화를 시작하기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천문학상 준비 과정이다.

7.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행성의 원시 대기

이런 초기 시대 내내, 태양계의 공간 지역들에는, 분열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천체{天體}들이 떼 지어 있었고, 연소 작용으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분쇄된 천체들이 바로 **유란시아** 표면에 떨어졌다. 이런 끊임없는 충격이 행성 표면을 다소 가열된 상태로 지속되게 했고, 구체가 커짐에 따라 중력 작용도 더욱 증가되면서, 철과 같은 무거운 성분이 행성 중심부를 향해서 점점 더 가라앉게 하는 영향력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approach to Jupiter until it entered the critical zone of gravity-tidal disruption, was swiftly fragmentized, and became the present-day cluster of asteroids.

57:6.6 (658.3) 4,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organization of the Jupiter and Saturn systems much as observed today except for their moons, which continued to increase in size for several billions of years. In fact, all of the planets and satellites of the solar system are still growing as the result of continued meteoric captures.

57:6.7 (658.4) 3,500,000,000 years ago the condensation nucleuses of the other ten planets were well formed, and the cores of most of the moons were intact, though some of the smaller satellites later united to make the present-day larger moons. This age may be regarded as the era of planetary assembly.

57:6.8 (658.5) 3,000,000,000 years ago the solar system was functioning much as it does today. Its members continued to grow in size as space meteors continued to pour in upon the planets and their satellites at a prodigious rate.

57:6.9 (658.6) About this time your solar system was placed on the physical registry of Nebadon and given its name, Monmatia.

57:6.10 (658.7) 2,500,000,000 years ago the planets had grown immensely in size. Urantia was a well-developed sphere about one tenth its present mass and was still growing rapidly by meteoric accretion.

57:6.11 (658.8) All of this tremendous activity is a normal part of the making of an evolutionary world on the order of Urantia and constitutes the astronomic preliminaries to the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beginning of the physical evolution of such worlds of space in preparation for the life adventures of time.

7. THE METEORIC ERA—THE VOLCANIC AGE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57:7.1 (658.9) Throughout these early times the space regions of the solar system were swarming with small disruptive and condensation bodies, and in the absence of a protective combustion atmosphere such space bodies crashed directly on the surface of Urantia. These incessant impacts kept the surface of the planet more or less heated, and this, together with the increased action of gravity as the sphere grew larger, began to set in operation those influences which gradually caused the heavier elements, such as iron, to settle more and more toward the center of the planet.

2,000,000,000년 전에, 지구는 뚜렷이 달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위성보다 행성이 항상 더 컸지만, 엄청나게 많은 천체 조각이 지구에 흡수된 이 시기까지, 크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무렵에, **유란시아**는 현재 크기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원시 대기를 붙잡아둘 만큼 충분한 크기에 도달하게 됐고, 이 대기는 가열된 내부와 냉각되는 표면 사이에서, 내부의 원소가 분리된 결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화산 작용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운석이 공간으로부터 가져온, 방사성(放射性)을 갖거나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더 깊이 묻힘으로써, 지구 내부의 열은 계속 증대됐다. 방사성이 있는 이 원소들을 연구하면, **유란시아**의 표면이 1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듐** 측정법은, 행성의 생성 년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시간 계산법이지만, 그런 측정 결과는 모두 너무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너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사성 물질은 모두 지구 표면에서 채취된 것이고, 따라서 **유란시아**가 이 원소들을 비교적 최근에 획득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500,000,000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에 달한 반면, 달은 현재 질량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됐다. 지구가 달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으므로, 그 위성이 본래 갖고 있었던 미세한 양의 대기(大氣)를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때 화산 작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지구 전체는 마치 불타는 지옥처럼 되어, 그 표면은 무거운 금속 성분이 중심부로 가라앉기 이전의 초기 용암 상태와 흡사했다. 이것이 바로 **화산기**{火山紀}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대개 비교적 가벼운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표면은 점차 형태를 갖추 나갔다. 장차 생명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행성에 원시 대기(大氣)가 서서히 형성됐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을 함유하게 됐지만, 질소와 산소는 거의 없었다. 화산 활동기의 지구 환경 상태는 어수선했던 모습이었다. 여러 기체 외에, 엄청난 양의 화산 연기가 가득 차게 됐고, 공기 층이 충분히 형성되자, 지구 표면에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에서 산화 물질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운석 산화 작용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전부 소모시켰고, 운석이 떨어지는 정도는 여전히 엄청났다.

이윽고, 대기 상태가 더 안정되고 충분히 냉각돼서, 지구의 가열된 암석 표면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란시아**는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연속적인 증기 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지구 표면에 태양이 전혀 비치지

57.7.2 (659.1) 2,000,000,000 years ago the earth began decidedly to gain on the moon. Always had the planet been larger than its satellite, but there was not so much difference in size until about this time, when enormous space bodies were captured by the earth. Urantia was then about one fifth its present size and had become large enough to hold the primitive atmosphere which had begun to appear as a result of the internal elemental contest between the heated interior and the cooling crust.

57.7.3 (659.2) Definite volcanic action dates from these times. The internal heat of the earth continued to be augmented by the deeper and deeper burial of the radioactive or heavier elements brought in from space by the meteors. The study of these radioactive elements will reveal that Urantia is more than one billion years old on its surface. The radium clock is your most reliable timepiece for making scientific estimates of the age of the planet, but all such estimates are too short because the radioactive materials open to your scrutiny are all derived from the earth's surface and hence represent Urantia's comparatively recent acquirements of these elements.

57.7.4 (659.3) 1,500,000,000 years ago the earth was two thirds its present size, while the moon was nearing its present mass. Earth's rapid gain over the moon in size enabled it to begin the slow robbery of the little atmosphere which its satellite originally had.

57.7.5 (659.4) Volcanic action is now at its height. The whole earth is a veritable fiery inferno, the surface resembling its earlier molten state before the heavier metals gravitated toward the center. *This is the volcanic age.* Nevertheless, a crust, consisting chiefly of the comparatively lighter granite, is gradually forming. The stage is being set for a planet which can someday support life.

57.7.6 (659.5)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is slowly evolving, now containing some water vapor,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hydrogen chloride, but there is little or no free nitrogen or free oxygen. The atmosphere of a world in the volcanic age presents a queer spectacle. In addition to the gases enumerated it is heavily charged with numerous volcanic gases and, as the air belt matures, with the combustion products of the heavy meteoric showers which are constantly hurtling in upon the planetary surface. Such meteoric combustion keeps the atmospheric oxygen very nearly exhausted, and the rate of meteoric bombardment is still tremendous.

57.7.7 (659.6) Presently, the atmosphere became more settled and cooled sufficiently to start precipitation of rain on the hot rocky surface of the planet. For thousands of years Urantia was enveloped in one vast and continuous blanket of

못했다.

대기 속에 있던 많은 탄소가 흡수돼서, 지표층{地表層}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의 탄산염을 형성했다. 그 후로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 기체를 초기의 풍부한 식물 생명체가 소비했다.

이어지는 기간에도, 계속되는 용암 분출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운석으로 말미암아,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거의 전부 소모되기에 이르렀다. 곧 나타나게 되는 원시 대양{大洋}의 초기 퇴적물 속에도, 색깔 있는 암석이나 이판암이 함유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양이 나타난 후 오랫동안, 대기 속에는 실질적으로 유리{遊離}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 나중에 해초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채소들이 산소를 생성하기 전에는 현저한 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화산 활동기의 원시 지구 대기는, 운석이 때지어 충돌하는 충격으로부터 지구를 거의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운석이 그런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고, 고체 덩어리로 지구 표면에 충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후기 시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기에 충분할 만큼 큰 운석은 점점 줄어들었다.

8. 지구 표면의 안정지진 활동기 세계적 대양과

최초의 대륙

1,0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 역사가 실제로 시작됐다. 지구는 오늘날의 크기에 거의 도달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네바돈**의 물리 등록소에 기재됐으며,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끊임없는 이슬 현상과 함께, 대기는 지구 표면의 냉각을 촉진시켰다. 화산{火山} 작용은, 일찍이 내부 열 압력과 지표면 응축을 균등화시켰으며; 화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지표면이 식고 조절되던 이 시기가 진행되면서, 지진{地震}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유란시아의 실제 지질 역사는, 첫 대양이 형성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구 표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시작됐다. 지구의 냉각된 표면에서 수증기의 응결은, 일단 형성되기 시작하자, 실제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대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 1마일에 달하는 동일한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었다. 그렇게 되자,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조수{潮水} 현상이 시작됐지만, 이 원시 대양에는 소금기가 없었으며; 지구를 뒤덮은 물은 실제로 민물 상태였다.

steam. And during these ages the sun never shone upon the earth's surface.

57:7.8 (659.7) Much of the carbon of the atmosphere was abstracted to form the carbonates of the various metals which abounded in the superficial layers of the planet. Later on, much greater quantities of these carbon gases were consumed by the early and prolific plant life.

57:7.9 (660.1) Even in the later periods the continuing lava flows and the incoming meteors kept the oxygen of the air almost completely used up. Even the early deposits of the soon appearing primitive ocean contain no colored stones or shales. And for a long time after this ocean appeared, there was virtually no free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it did not appear in significant quantities until it was later generated by the seaweeds and other forms of vegetable life.

57:7.10 (660.2)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of the volcanic age affords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collisional impacts of the meteoric swarms. Millions upon millions of meteors are able to penetrate such an air belt to smash against the planetary crust as solid bodies. But as time passes, fewer and fewer prove large enough to resist the ever-stronger friction shield of the oxygen-enriching atmosphere of the later eras.

8. CRUSTAL STABILIZATION

THE AGE OF EARTHQUAKES

THE WORLD OCEAN AND THE FIRST

CONTINENT

57:8.1 (660.3) 1,000,000,000 years ago is the date of the actual beginning of Urantia history. The planet had attained approximately its present size. And about this time it was placed upon the physical registries of Nebadon and given its name, *Urantia*.

57:8.2 (660.4) The atmosphere, together with incessant moisture precipitation, facilitated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Volcanic action early equalized internal-heat pressure and crustal contraction; and as volcanoes rapidly decreased, earthquakes made their appearance as this epoch of crustal cooling and adjustment progressed.

57:8.3 (660.5) The real geologic history of Urantia begins with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sufficiently to cause the formation of the first ocean. Water-vapor condensation on the cooling surface of the earth, once begun, continued until it was virtually complete.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ocean was world-wide, covering the entire planet to an average depth of over one mile. The tides were then in play much as they are now observed, but this primitive ocean was not salty; it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염소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과 합쳐져 있었으나, 수소와 합쳐져서 이런 물이 약한 산성을 띠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아득히 먼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물 속에 갇힌 행성으로 관측됐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 깊은, 그리하여 밀도가 더 높아진 용암이, 현재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밑바닥으로 흘러 나왔고, 표면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됐다. 점점 두꺼워지는 지층의 평형 작용에 대한 보상 조정 현상으로, 거대한 첫 대륙이 세계의 대양에서 솟아올랐다.

95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하나로 이뤄진 물, 즉 **태평양**이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화산 활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지진 활동은 빈번하고 맹렬하게 지속됐다. 운석이 지구에 계속 떨어졌지만, 빈도와 크기는 줄어들고 있었다. 대기는 투명하게 됐으나,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지구 표면은 점점 안정돼 갔다.

바로 이 무렵에, 행성 경영을 위해서 **유란시아**가 **사타니아** 체계에 배정되고, **노라티아덱**의 생명 등록소에 기록됐다. 그리고 나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구체에 대한 실제적인 경영이 시작됐는데, 이 구체는 **미가엘**이 나중에 필사자로서 증여되는 엄청난 이행업무에 착수할 행성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고, 거기서 **미가엘**은, 나중에 **유란시아**를 “십자가의 세계”로 지방우주에 알리게 될 여러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900,000,000년 전에, **사타니아**의 첫 정찰대가 **예루셈**으로부터 **유란시아**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지구를 조사하고, 생명을 실험하는 장소가 될 만큼 적당한 상태가 됐는지 보고하도록 파송됐다. 이 위원회는 스물네 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생명 운반자들**, **라노난덱 아들들**, **멜기세덱들**, 스라빔, 그리고 행성의 조직과 경영의 초기 단계에 활동하는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생명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행성에 대한 수고스런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유란시아**가 생명을 실험하도록 등록되기에 적합하게 됐음을, 호감을 갖고 **체계 주권자**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예루셈**에 10진(十進) 행성으로 등록됐고,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을 옮기고 주입하는 권한을 지니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기계, 화학, 및 전기 방법으로 동원하는 새로운 원형(原型)들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락을 통고 받았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열두 명의 혼합된 **예루셈** 위원회가 행성 점유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was practically a fresh-water covering for the world. In those days, most of the chlorine was combined with various metals, but there was enough, in union with hydrogen, to render this water faintly acid.

57:8.4 (660.6) At the opening of this faraway era, Urantia should be envisaged as a water-bound planet. Later on, deeper and hence denser lava flows came out upon the bottom of the present Pacific Ocean, and this part of the water-covered surface became considerably depressed. The first continental land mass emerged from the world ocean in compensatory adjustment of the equilibrium of the gradually thickening earth's crust.

57:8.5 (660.7) 950,000,000 years ago Urantia presents the picture of one great continent of land and one large body of water, the Pacific Ocean. Volcanoes are still widespread and earthquakes are both frequent and severe. Meteors continue to bombard the earth, but they are diminishing in both frequency and size. The atmosphere is clearing up, but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continues large. The earth's crust is gradually stabilizing.

57:8.6 (660.8) It was at about this time that Urantia was assigned to the system of Satania for planetary administration and was placed on the life registry of Norlatiadek. Then began the administrative recognition of the small and insignificant sphere which was destined to be the planet whereon Michael would subsequently engage in the stupendous undertaking of mortal bestowal, would participate in those experiences which have since caused Urantia to become locally known as the “world of the cross.”

57:8.7 (661.1) 9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arrival on Urantia of the first Satania scouting party sent out from Jerusem to examine the planet and make a report on its adaptation for a life-experiment station. This commission consisted of twenty-four members, embracing Life Carriers, Lanonandek Sons, Melchizedeks, seraphim,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life having to do with the early days of planeta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57:8.8 (661.2) After making a painstaking survey of the planet, this commission returned to Jerusem and reported favorably to the System Sovereign, recommending that Urantia be placed on the life-experiment registry. Your world was accordingly registered on Jerusem as a decimal planet, and the Life Carriers were notified that they would be granted permission to institute new patterns of mechanical, chemical, and electrical mobilization at the time of their subsequent arrival with life transplantation and implantation mandates.

57:8.9 (661.3) In due course arrangements for the planetary occupation were completed by the mixed

에덴시아에 있는 70명으로 이뤄진 행성 위원회가 이를 인가했다. **생명 운반자**들에게 자문하는 조언자들이 제안한 이 계획은, **살빙톤**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 직후에 **네바돈**의 소식통은, **생명 운반자**들이 **네바돈**의 생명 원형들 중에서 **사타니아** 유형을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고안된, 60번째의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유란시아**가 도달했다고 공표했다.

우주 방송이 **유란시아**를 **네바돈** 전체에 처음으로 알린 직후에, 온전한 우주 지위가 **유란시아**에 수여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란시아**는 연방우주의 소구역과 대구역 본부 행성 기록부에 등록됐으며,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란시아**는 **우버사**의 행성_생명 등록부에 기재됐다.

이 기간 전체의 특징은 빈번하고 격렬한 폭풍 우였다. 초기에 지각(地殼)은 연속해서 유동(流動)하는 상태에 있었다. 냉각된 표면은 엄청난 양의 용암 분출로 인해 변형됐다. 지구 표면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원래의 지각 부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지구 전체는 깊은 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흘러나온 용암과 혼합됐고, 초기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대양에서 나중에 퇴적된 물질들과 뒤섞였다.

대양이 있기 전에 생긴 고대의 암반으로부터 변경된 잔재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허드슨 만**(灣) 주변의 북동쪽 **캐나다**에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화강암이 융기된 이 광대한 지역은, 대양이 생기기 이전 시대에 속하는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암반층은, 가열되고, 휘어졌고, 뒤틀려졌고, 위쪽으로 주름이 잡혔으며, 이런 뒤틀림의 변형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대양 시대 내내, 화석이 없는 성층암(成層岩)으로 이뤄진 거대한 지층이 고대의 대양 바닥으로 퇴적됐다. (석회암은 화학적인 침전의 결과로도 형성될 수 있으며; 오래된 석회암 전체가, 해양_생명체의 퇴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 형성된 이런 암반에서는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나중에 일어난 홍수기의 퇴적물이, 생명체가 생기기 이전의, 비교적 더 오래된 이런 지층과 뒤섞이지 않은 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지구의 초기 지각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산맥이 형성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구는 형태를 갖추면서 중력 작용으로 인해 응축 현상이 일어났다. 산맥은, 응축되는 영역에서 냉각된 지층이 붕괴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빗물과 중력 그리고 침식 작용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됐다.

이 시기에 나타난 대륙은, 지구 표면의 10퍼센트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대됐다. 대륙이 물 위로 알맞게 솟아오를 때까지, 심각한 지진은

commission of twelve on Jerusem and approved by the planetary commission of seventy on Edentia. These plans, proposed by the advisory counselors of the Life Carriers, were finally accepted on Salvington. Soon thereafter the Nebadon broadcasts carried the announcement that Urantia would become the stage whereon the Life Carriers would execute their sixtieth Satania experiment designed to amplify and improve the Satania type of the Nebadon life patterns.

57:8.10 (661.4) Shortly after Urantia was first recognized on the universe broadcasts to all Nebadon, it was accorded full universe status. Soon thereafter it was registered in the records of the minor and the major sector headquarters planets of the superuniverse; and before this age was over, Urantia had found entry on the planetary-life registry of Uversa.

57:8.11 (661.5) This entire age was characterized by frequent and violent storms. The early crust of the earth was in a state of continual flux. Surface cooling alternated with immense lava flows. Nowhere can there be found on the surface of the world anything of this original planetary crust. It has all been mixed up too many times with extruding lavas of deep origins and admixed with subsequent deposits of the early world-wide ocean.

57:8.12 (661.6) Nowhere on the surface of the world will there be found more of the modified remnants of these ancient preocean rocks than in northeastern Canada around Hudson Bay. This extensive granite elevation is composed of stone belonging to the preoceanic ages. These rock layers have been heated, bent, twisted, upcrumpled, and again and again have they passed through these distorting metamorphic experiences.

57:8.13 (661.7) Throughout the oceanic ages, enormous layers of fossil-free stratified stone were deposited on this ancient ocean bottom. (Limestone can form as a result of chemical precipitation; not all of the older limestone was produced by marine-life deposition.) In none of these ancient rock formations will there be found evidences of life; they contain no fossils unless, by some chance, later deposits of the water ages have become mixed with these older prelife layers.

57:8.14 (662.1) The earth's early crust was highly unstable, but mountains were not in process of formation. The planet contracted under gravity pressure as it formed. Mountains are not the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cooling crust of a contracting sphere; they appear later on as a result of the action of rain, gravity, and erosion.

57:8.15 (662.2) The continental land mass of this era increased until it covered almost ten per cent of the earth's surface. Severe earthquakes did not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시작되자, 지진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고 격렬하게 발생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이 줄어들었지만, **유란시아**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15번 정도 발생되고 있다.

850,000,000년 전에, 실제로 지각이 안정되는 시기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무거운 금속 성분 대부분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았으며; 냉각된 지각은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대한 정도의 함몰{陷沒} 현상을 멈추게 됐다. 땅의 돌출과, 이보다 무거운 해양 바닥 사이에, 더욱 안정된 균형이 이뤄졌다. 지표 밑에 있는 용암층의 유동은 거의 세계적으로 퍼졌으며, 이런 현상은 냉각과 응축 그리고 표면적인 변형 때문에 생긴 불안정을 보상하고 안정화시켰다.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의 빈도와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다. 대기에 있던 화산 먼지와 수증기가 없어졌지만,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땅과 공기 중의 전기{電氣} 교란 현상 역시 점차 감소했다. 지각을 다양화시키고, 어떤 공간_에너지로부터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합성 원소들이,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으로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자력{磁力}을 띤 두 극점의 작용에서 나타나듯이, 지구 에너지의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했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데 많이 기여했다.

800,000,000년 전에, 최초의 거대한 육지{陸地} 시기, 즉 대륙이 더욱 솟아오르는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 목격됐다.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세계에 퍼진 대양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그때 지구 표면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모습이 됐다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 바다로 떨어지는 운석은 해저{海底}에 쌓이게 됐는데, 운석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돼 있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대개 산화{酸化}됐고, 이어서 침식 작용으로 부식됐으며, 바다로 씻겨 들어갔다. 그리하여 대양의 밑바닥은 점점 무거워졌으며, 그 위에 물의 하중이 더해졌고, 어떤 부분은 깊이가 10마일에 달하기도 했다.

점차 증가되는 **태평양**의 침강이 대륙을 더 밀어 올리게 됐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현재 **오스트랄리아**, 남_북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역을 따라 **태평양** 깊은 곳에서 융기되기 시작했고, 한편 **태평양**의 바닥은 이를 보상하는 조정 작용으로 더욱 침강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육지가 됐는데, 전부 하나의 대륙 덩어리였다.

육지의 고도가 이렇게 점차 높아지면서, 지구

begin until the continental mass of land emerged well above the water. When they once began, they increased in frequency and severity for ages. For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earthquakes have diminished, but Urantia still has an average of fifteen daily.

57:8.16 (662.3) 850,000,000 years ago the first real epoch of the stabilization of the earth's crust began. Most of the heavier metals had settled down toward the center of the globe; the cooling crust had ceased to cave in on such an extensive scale as in former ages. There was established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land extrusion and the heavier ocean bed. The flow of the subcrustal lava bed became well-nigh world-wide, and this compensated and stabilized the fluctuations due to cooling, contracting, and superficial shifting.

57:8.17 (662.4) Volcanic eruptions and earthquakes continued to diminish in frequency and severity. The atmosphere was clearing of volcanic gases and water vapor, but the percentage of carbon dioxide was still high.

57:8.18 (662.5) Electric disturbances in the air and in the earth were also decreasing. The lava flows had brought to the surface a mixture of elements which diversified the crust and better insulated the planet from certain space-energies. And all of this did much to facilitate the control of terrestrial energy and to regulate its flow, as is disclosed by the functioning of the magnetic poles.

57:8.19 (662.6) 8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great land epoch, the age of increased continental emergence.

57:8.20 (662.7) Since the condensation of the earth's hydrosphere, first into the world ocean and subsequently into the Pacific Ocean, this latter body of water should be visualized as then covering nine tenths of the earth's surface. Meteors falling into the sea accumulated on the ocean bottom, and meteors are, generally speaking, composed of heavy materials. Those falling on the land were largely oxidized, subsequently worn down by erosion, and washed into the ocean basins. Thus the ocean bottom grew increasingly heavy, and added to this was the weight of a body of water at some places ten miles deep.

57:8.21 (662.8) The increasing downthrust of the Pacific Ocean operated further to upthrust the continental land mass. Europe and Africa began to rise out of the Pacific depths along with those masses now called Australia, North and South America, and the continent of Antarctica, while the bed of the Pacific Ocean engaged in a further compensatory sinking adjustment. By the end of this period almost one third of the earth's surface consisted of land, all in one continental body.

57:8.22 (662.9) With this increase in land elevation the

상에 최초의 기후 차이가 나타났다. 땅의 융기, 광대한 구름 층, 및 태양의 영향이 기후 변동의 주요 요소였다. 땅이 최고로 융기됐을 때, **아시아** 지역 중심부의 고도는 거의 9마일에 이르렀다. 공중에는 많은 수분이 함유돼 있었고, 이런 높이 솟아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얼음 층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빙하기는 실제로 이뤄진 것보다 훨씬 전에 시작될 수도 있었다. 광범한 지역의 땅이 수면 위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수억 년 걸렸다.

750,000,000년 전에, 대륙 땅 덩어리가 처음으로 균열되면서 남_북 방향으로 거대하게 틈이 벌어지게 됐으며, 나중에는 해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갔고, **그린랜드**를 포함한 남_북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됐다. 동_서 방향으로 길게 틈이 생겨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분리됐고, **오스트랄리아**와 **태평양 군도**(群島), 그리고 **남극 대륙**의 땅 덩어리가 **아시아** 대륙에서 갈라져 나갔다.

7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생명체를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원숙한 환경에 도달했다. 대륙의 땅들은 계속 유동{流動}했으며; 태양의 물이 점점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모양의 긴 바다가 형성됐으며, 얕은 물과 보호된 만{灣}은,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650,000,000년 전에, 땅 덩어리들은 더욱 분열됐고, 따라서 대륙의 내해{內海}들이 더 확장됐다. 그리고 이런 바다는, **유란시아**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어느 정도의 소금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됐다.

시대가 지나고 세기가 바뀌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잘 보존된 돌판들에서 나중에 발견된 바와 같이, **유란시아**의 생명체 이력을 적어놓은 것은, 바로 이 여러 바다와 그 뒤를 이은 바다들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이 내륙의 바다들은 정말로 진화의 요람이었다.

[원래 **유란시아 단체**의 일원이었고 현재는 거주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한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first climatic differences of the planet appeared. Land elevation, cosmic clouds, and oceanic influences are the chief factors in climatic fluctuation. The backbone of the Asiatic land mass reached a height of almost nine miles at the time of the maximum land emergence. Had there been much moisture in the air hovering over these highly elevated regions, enormous ice blankets would have formed; the ice age would have arrived long before it did. It was several hundred millions of years before so much land again appeared above water.

57:8.23 (663.1) 750,000,000 years ago the first breaks in the continental land mass began as the great north-and-south cracking, which later admitted the ocean waters and prepared the way for the westward drift of the continents of North and South America, including Greenland. The long east-and-west cleavage separated Africa from Europe and severed the land masses of Australia, the Pacific Islands, and Antarctica from the Asiatic continent.

57:8.24 (663.2) 700,000,000 years ago Urantia was approaching the ripening of conditions suitable for the support of life.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increasingly the ocean penetrated the land as long fingerlike seas providing those shallow waters and sheltered bays which are so suitable as a habitat for marine life.

57:8.25 (663.3) 65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further separation of the land masses and, in consequence, a further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eas. And these waters were rapidly attaining that degree of saltiness which was essential to Urantia life.

57:8.26 (663.4) It was these seas and their successors that laid down the life records of Urantia, as subsequently discovered in well-preserved stone pages, volume upon volume, as era succeeded era and age grew upon age. These inland seas of olden times were truly the cradle of evolution.

57:8.27 (663.5) [Presented by a Life Carrier, a member of the original Urantia Corps and now a resident observer.]

제58편. 유란시아의 생명체 태동

⇨ 057

유란시아 책

05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8편

유란시아의 생명체 태동

섹션

소개

1. 물리적 생명의 필요조건
2. 유란시아의 대기
3. 공간의 환경
4. 생명이 시작된 시대
5. 대륙의 표류
6. 과도기
7. 지질 역사책

PAPER 58

LIFE ESTABLISHMENT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Life Prerequisites
2. The Urantia Atmosphere
3. Spatial Environment
4. The Life-Dawn Era
5. The Continental Drift
6. The Transition Period
7. The Geologic History Book

소개

사타니아 전체에서, 생명체_변경 행성인 **유란시아**와 비슷한 세계는 61개밖에 없다. 인간거주 세계들 대부분은 이미 확정된 기법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돼있으며;그런 구체에서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 이식을 위한 계획에 재량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러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는 **10진 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 운반자**들의 특별 등록부에 배정되며;그런 행성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표준 우주 유형들을 변경시키거나, 가능한 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생명체 실험을 수행하도록 허락받는다.

INTRODUCTION

58:0.1 (664.1) IN ALL Satania there are only sixty-one worlds similar to Urantia, life-modification planets. The majority of inhabited worlds are peopl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techniques; on such spheres the Life Carriers are afforded little leeway in their plans for life implantation. But about one world in ten is designated as a *decimal planet* and assigned to the special registry of the Life Carriers; and on such planets we are permitted to undertake certain life experiments in an effort to modify or possibly improve the standard universe types of living beings.

1. 물리적 생명의 필요조건

600,000,000년 전에, **예루셈**에서 파견한 **생명 운반자** 위원회가 **유란시아**에 도착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606 번인 이 세상에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타니아**에서 **네바돈** 생명 원형{原型}을 전수하는 606번째 경험이며, 지방우주의 기본 및 표준 생명 설계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변경을 시도하는 60번째 기회였다.

1. PHYSICAL-LIFE PREREQUISITES

58:1.1 (664.2) 600,000,000 years ago the commission of Life Carriers sent out from Jerusem arrived on Urantia and began the study of physical conditions preparatory to launching life on world number 606 of the Satania system. This was to be our six hundred and sixth experience with the initiation of the Nebadon life patterns in Satania and our sixtieth opportunity to make changes and institute modifications in the basic and standard life

구체가 진화 주기(週期)를 개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생명 운반자**가 생명체를 전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행성의 물리적 진보가 유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생명체를 개발할 수도 없다.

사타니아의 생명 운반자들은 염화나트륨 원형의 생명체를 입안했었으며; 따라서 바닷물이 충분한 소금기를 갖기 전에는, 생명체를 심는 쪽으로 단계를 진행할 수 없었다. **유란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금기를 머금은 용액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 모든 조상 생명체는--곧 식물과 동물은-- 소금기를 머금은 용액의 서식지에서 진화했다. 더 고도로 조직화된 육상 동물일지라도, 바로 이 필수적 소금 용액이 혈액 순환을 통해서 몸 전체를 돌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혈액 순환은 이런 “질은 소금기” 속에서 살아있는 미세한 모든 세포에게 자유롭게 염분을 제공하고 완전히 그 속에 잠기도록 한다.

너희의 원시 조상은 소금기 있는 해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했으며; 오늘날, 바로 이 바닷물 같은 소금기 있는 용액이 너희의 몸 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고, 각각의 세포를 화학 용액으로 적셔주고 있는데, 이 용액의 모든 본질적 요소는, 행성에서 활동하기로 된, 살아있는 처음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을 자극한 그 소금물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모든 면에서 해양 생명체의 초기 형태를 부양(扶養)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진화해 갔다. 지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 지역들에서,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에--곧 땅과 공간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했던 생명체 형태들을 정착 시키려는, 그런 차후의 여러 시도를 위한 무대를, 물리적 발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에 **사타니아 생명 운반자**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대륙의 땅 덩어리가 더 나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것은 실제로 생명체 이식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대륙의 바다와 보호된 만(灣)들을 마련해줄 것이다.

생명체가 해양으로부터 기원된 행성에서는, 수많은 대륙의 바다, 즉 수심이 얇고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과 보호된 만(灣)이, 생명 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으며; 바로 그런 바다가 지구에서 빠른 속도로 분포되고 있었다. 고대의 이런 내륙해(內陸海)의 깊이는 거의 500내지 600피트를 넘지 않았고, 태양 광선은 600피트 이상의 깊은 해수(海水) 밑까지 미쳤다.

그리고 후대의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갖는 바로 그런 해안선에서, 원시 식물 생명체는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대기 속에 있는 많은 양의 탄소가, 새로운 땅의 다양한 생명체에게, 신속하고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designs of the local universe.

58:1.2 (664.3)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Life Carriers cannot initiate life until a sphere is ripe for the inauguration of the evolutionary cycle. Neither can we provide for a more rapid life development than can be supported and accommodated by the physical progress of the planet.

58:1.3 (664.4) The Satania Life Carriers had projected a sodium chloride pattern of life; therefore no steps could be taken toward planting it until the ocean waters had become sufficiently briny. The Urantia type of protoplasm can function only in a suitable salt solution. All ancestral life — vegetable and animal — evolved in a salt-solution habitat. And even the more highly organized land animals could not continue to live did not this same essential salt solution circulate throughout their bodies in the blood stream which freely bathes, literally submerses, every tiny living cell in this “briny deep.”

58:1.4 (664.5) Your primitive ancestors freely circulated about in the salty ocean; today, this same oceanlike salty solution freely circulates about in your bodies, bathing each individual cell with a chemical liquid in all essentials comparable to the salt water which stimulated the first protoplasmic reactions of the first living cells to function on the planet.

58:1.5 (664.6) But as this era opens, Urantia is in every way evolving toward a state favorable for the support of the initial forms of marine life. Slowly but surely physical developments on earth and in adjacent space regions are preparing the stage for the later attempts to establish such life forms as we had decided would be best adapted to the unfolding physical environment — both terrestrial and spatial.

58:1.6 (665.1) Subsequently the Satania commission of Life Carriers returned to Jerusem, preferring to await the further breakup of the continental land mass, which would afford still more inland seas and sheltered bays, before actually beginning life implantation.

58:1.7 (665.2) On a planet where life has a marine origin the ideal conditions for life implantation are provided by a large number of inland seas, by an extensive shore line of shallow waters and sheltered bays; and just such a distribution of the earth's waters was rapidly developing. These ancient inland seas were seldom over five or six hundred feet deep, and sunlight can penetrate ocean water for more than six hundred feet.

58:1.8 (665.3) And it was from such seashores of the mild and equable climes of a later age that primitive plant life found its way onto the land. There the high degree of carbon in the atmosphere afforded the new land varieties of life

공했다. 이런 대기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았으므로, 사람은 커녕, 어떤 동물도 지표면에 살 수 없었다.

2. 유란시아의 대기

태양의 전체 방사광{放射光} 가운데 약 20억분의 1만 땅으로 들어오도록, 행성의 대기가 걸러낸다. 만약 **북 아메리카**에 비치는 광선에 대해 시간당 1킬로 와트마다 2센트의 비율로 계산한다면, 연간 사용량 고지서는 약 800,000조{兆}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햇빛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에 부과될 고지서는,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도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곧 태양은 빛 외에도 여러 가지로 너희 대기{大氣}에 기여한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의 파장보다 짧거나 긴 파장을 포함해서, 방대한 태양 에너지가 **유란시아**에 퍼부어진다.

스펙트럼의 자외선{紫外線} 끝 부분에 있는 태양 방사능 물질 대부분은,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이런 짧은 파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10마일 상공 전역에 퍼져 있는 오존층에 흡수되며, 그 층은 10마일 두께로 우주를 향해서 뻗어있다. 이 지역에 퍼져있는 오존은, 지구 표면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오직 10분의 1인치 두께의 층을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소량이고 겉보기에 대단치 않은 양의 오존이, 햇빛 속에 있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자외선 방사능 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란시아** 거주생명체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매우 중요하고 건강을 제공하는 자외선이 차단될 것인데, 이 자외선은 지금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 가운데 하나의 조상이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상상력이 빈약한 일부 필사 유물론자들은, 물질 창조와 인간 진화가 우연이라고 고집스럽게 간주한다. **유란시아**의 중도자{中道者}들은, 우발적 우연의 법칙에 모순된다고 판단하는, 그리고 물질 창조에 지성적 의도가 들어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5만 가지 이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사실을 모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물리적 및 화학적 범위 밖에서 발견하는 10만 가지 이상의 목록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중도자들은 물질 시공우주를 계획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정신이 현존하고 있음을 이것들이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너희의 태양은, 죽음을 초래하는 광선을 홍수처럼 쏟아내며, **유란시아**에서 너희의 쾌적한 삶

opportunity for speedy and luxuriant growth. Though this atmosphere was then ideal for plant growth, it contained such a high degree of carbon dioxide that no animal, much less man, could have lived on the face of the earth.

2. THE URANTIA ATMOSPHERE

58:2.1 (665.4) The planetary atmosphere filters through to the earth about one two-billionth of the sun's total light emanation. If the light falling upon North America were paid for at the rate of two cents per kilowatt-hour, the annual light bill would be upward of 800 quadrillion dollars. Chicago's bill for sunshine would amount to considerably over 100 million dollars a day.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you receive from the sun other forms of energy — light is not the only solar contribution reaching your atmosphere. Vast solar energies pour in upon Urantia embracing wave lengths ranging both above and below the recognition range of human vision.

58:2.2 (665.5) The earth's atmosphere is all but opaque to much of the solar radiation at the extreme ultraviolet end of the spectrum. Most of these short wave lengths are absorbed by a layer of ozone which exists throughout a level about ten mile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which extends spaceward for another ten miles. The ozone permeating this region, at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earth's surface, would make a layer only one tenth of an inch thick; nevertheless, this relatively small and apparently insignificant amount of ozone protects Urantia inhabitants from the excess of these dangerous and destructive ultraviolet radiations present in sunlight. But were this ozone layer just a trifle thicker, you would be deprived of the highly important and health-giving ultraviolet rays which now reach the earth's surface, and which are ancestral to one of the most essential of your vitamins.

58:2.3 (665.6) And yet some of the less imaginative of your mortal mechanists insist on viewing material creation and human evolution as an accident. The Urantia midwayers have assembled over fifty thousand facts of physics and chemistry which they deem to be incompatible with the laws of accidental chance, and which they contend unmistakably demonstrate the presence of intelligent purpose in the material creation. And all of this takes no account of their catalogue of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findings outside the domain of physics and chemistry which they maintain prove the presence of mind in the planning,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he material cosmos.

58:2.4 (666.1) Your sun pours forth a veritable flood of death-dealing rays, and your pleasant life on Urantia is due to the "fortuitous" influence of more

은, 겉보기에 “우연한”, 40가지가 넘는 보호 작용의 영향력 때문인데, 이것들은 독특한 이 오존층 효과와 유사하다.

밤에 대기를 “덮는” 효과가 없다면, 방열 작용으로 인해서 열이 너무 신속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인위적 열 공급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지구 대기 가운데 아래쪽 5내지 6마일은 대류권{對流圈}에 해당되며;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과 공기의 흐름이 있는 지역이다. 그 위에는 내부 전리층{電離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성층권{成層圈}이 있다. 지구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6내지 8마일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가고, 꼭대기의 온도는 화씨로 약 영하 70도에 이른다. 화씨 영하 65내지 70도에 이르는 이 온도는 그 다음 40마일을 올라가는 동안 변함없으며; 온도가 일정한 이 구역은 성층권이다. 45내지 50마일의 고도에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고, 이 온도 상승은 오로라 현상이 있는 높이까지 계속되어 화씨로 1,200도까지 도달하며, 이런 극심한 열로 인해 산소가 이온화 된다. 그러나 이런 희박한 대기에서 온도는 지구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열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 너희의 전체 대기 중에서 반 정도가 지표면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가장 높은 오로라 유광{流光}이 -- 약 400마일의 -- 지구 대기 꼭대기를 가리킨다.

오로라 현상은, 태양 흑점, 즉 태양의 적도 위와 아래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태양 폭풍우와 직접 관련되는데, 이 소용돌이는 땅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대기권 교란은, 적도보다 위 또는 아래에서 발생할 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빛의 파장을 변경시키는 태양흑점의 위력은, 이런 태양 폭풍 중심들이 막강한 자력{磁力}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자장은, 태양흑점 분화구로부터 대전{帶電}된 입자들을 공간을 통해서 지구 외부 대기로 뿜어내며, 거기서 그 이온화 영향력이 그런 장관{壯觀}의 오로라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태양흑점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 혹은 그 직후에, 즉 그 흑점들이 비교적 더 널리 적도 부근에 위치했을 때 --, 너희는 가장 큰 오로라 현상을 보게 된다.

나침반조차 이런 태양 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뜰 때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다. 이것이 매일 일어나지만, 태양흑점 주기가 절정에 이르는 동안에는, 나침반의 이런 편차가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낮에 일어나는 나침반의 이런 변동은,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층부 대기의 증가된 이온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의 장파 및 단파 라디오방송이 먼 거리까

than two-score apparently accidental protective operations similar to the action of this unique ozone layer.

58:2.5 (666.2) Were it not for the “blanketing” effect of the atmosphere at night, heat would be lost by radiation so rapidly that life would be impossible of maintenance except by artificial provision.

58:2.6 (666.3) The lower five or six miles of the earth's atmosphere is the troposphere; this is the region of winds and air currents which provide weather phenomena. Above this region is the inner ionosphere and next above is the stratosphere. Ascending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the temperature steadily falls for six or eight miles, at which height it registers around 70 degrees below zero F. This temperature range of from 65 to 70 degrees below zero F. is unchanged in the further ascent for forty miles; this realm of constant temperature is the stratosphere. At a height of forty-five or fifty miles, the temperature begins to rise, and this increase continues until, at the level of the auroral displays, a temperature of 1200° F. is attained, and it is this intense heat that ionizes the oxygen. But temperature in such a rarefied atmosphere is hardly comparable with heat reckoning at the surface of the earth. Bear in mind that one half of all your atmosphere is to be found in the first three miles. The height of the earth's atmosphere is indicated by the highest auroral streamers — about four hundred miles.

58:2.7 (666.4) Auroral phenomena are directly related to sunspots, those solar cyclones which whirl in opposite directions above and below the solar equator, even as do the terrestrial tropical hurricanes. Such atmospheric disturbances whirl in opposite directions when occurring above or below the equator.

58:2.8 (666.5) The power of sunspots to alter light frequencies shows that these solar storm centers function as enormous magnets. Such magnetic fields are able to hurl charged particles from the sunspot craters out through space to the earth's outer atmosphere, where their ionizing influence produces such spectacular auroral displays. Therefore do you have the greatest auroral phenomena when sunspots are at their height — or soon thereafter — at which time the spots are more generally equatorially situated.

58:2.9 (666.6) Even the compass needle is responsive to this solar influence since it turns slightly to the east as the sun rises and slightly to the west as the sun nears setting. This happens every day, but during the height of sunspot cycles this variation of the compass is twice as great. These diurnal wanderings of the compass are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ionization of the upper atmosphere, which is produced by the sunlight.

58:2.10 (666.7) It is the presence of two different

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충전된 두 개의 전도(傳導) 구역이 성층권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방송은, 이런 외부 전리층의 구역에서 가끔 거세게 일어나는 심한 폭풍에 방해받을 받는다.

3. 공간의 환경

우주가 물질화하는 초기에, 공간 지역에는 광대한 수소 구름층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천문(天文) 먼지 다발이, 멀리 떨어진 공간 전역에서 많은 지역의 특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불타는 항성들이 복사(輻射) 에너지로 분산되고 흩어져서 조직화된 대부분의 물질은, 초기에 나타난 이런 공간 수소 구름 속에서 원래 조성됐다. 또한 어떤 색다른 조건에서, 큰 수소 덩어리의 핵심부에 원자 분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가 조성되고 분열되는 이런 모든 현상은, 복사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이 만조(滿潮)에 도달함으로써 일어나는데, 극도로 가열된 성운의 경우와 같다. 이런 다양한 방사물에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간_에너지가 뒤따른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짧은_광선의 에너지 측정량은, 조직된 공간 범위 속에 있는 모든 다른 형태의 복사 에너지보다 400배 더 크다. 짧은 공간 광선의 산출은, 어떤 불타는 성운들, 팽팽한 전기장(電氣場), 외부 공간, 또는 방대한 수소 먼지 구름에서 나왔든지 상관없이, 온도, 중력, 및 전압의 파동 그리고 그 속의 갑작스런 장력(張力) 변동에 따라서 질적 및 양적으로 변경된다.

공간 광선의 기원에서 이런 우발성은, 많은 시공우주 사건 및 회전하는 물질의 궤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변경된 원에서 극심한 타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電子)의 회전이 때로는 동일한 물리적 지대 안에서조차 더 큰 물질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 역시 크게 변경될 수 있다.

방대한 수소 구름은 실제적인 시공우주 화학 실험소인데, 진화하는 에너지와 변질되는 물질의 모든 국면을 품고 있다. 또한 매우 빈번하게 겹쳐지고, 그럼으로써 광범하게 뒤섞이는, 쌍으로 이뤄진 큰 별들의 변두리에 있는 기체 속에서, 큰 에너지 작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광범하고 거대한 공간의 에너지 활동 가운데 어떤 것도, 조직된 생명체의 현상에 --즉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의 원형질 씨앗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간의 이런 에너지 조건은 생명체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조건은 복사 에너지를 가진, 비교적 파장이 긴 광선들 중에서 더러 그런 것과는 달리, 원형질 씨앗의 원초적인 요소들

levels of electrified conducting regions in the superstratosphere that accounts for the long-distance transmission of your long- and short-wave radiobroadcasts. Your broadcasting is sometimes disturbed by the terrific storms which occasionally rage in the realms of these outer ionospheres.

3. SPATIAL ENVIRONMENT

58:3.1 (666.8) During the earlier times of universe materialization the space regions are interspersed with vast hydrogen clouds, just such astronomic dust clusters as now characterize many regions throughout remote space. Much of the organized matter which the blazing suns break down and disperse as radiant energy was originally built up in these early appearing hydrogen clouds of space. Under certain unusual conditions atom disruption also occurs at the nucleus of the larger hydrogen masses. And all of these phenomena of atom building and atom dissolution, as in the highly heated nebulae, are attended by the emergence of flood tides of short space rays of radiant energy. Accompanying these diverse radiations is a form of space-energy unknown on Urantia.

58:3.2 (667.1) This short-ray energy charge of universe space is four hundred times greater than all other forms of radiant energy existing in the organized space domains. The output of short space rays, whether coming from the blazing nebulae, tense electric fields, outer space, or the vast hydrogen dust clouds, is mod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y fluctuations of, and sudden tension changes in, temperature, gravity, and electronic pressures.

58:3.3 (667.2) These eventualities in the origin of the space rays are determined by many cosmic occurrences as well as by the orbits of circulating matter, which vary from modified circles to extreme ellipses. Physical conditions may also be greatly altered because the electron spin is sometime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at of the grosser matter behavior, even in the same physical zone.

58:3.4 (667.3) The vast hydrogen clouds are veritable cosmic chemical laboratories, harboring all phases of evolving energy and metamorphosing matter. Great energy actions also occur in the marginal gases of the great binary stars which so frequently overlap and hence extensively commingle. But none of these tremendous and far-flung energy activities of space exerts the least influence upon the phenomena of organized life — the germ plasm of living things and beings. These energy conditions of space are germane to the essential environment of life establishment, but they are not effective in the subsequent modification of the inheritance factors of the germ

에서 뒤 따라 일어나는 변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移植}한 생명체는, 엄청나게 물려오는 이런 모든 우주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에 대해, 완전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이런 모든 핵심적인 시공우주 조건은, 실제로 **생명 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생명체 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적당한 상태로 진화해야만 했다.

4. 생명이 시작된 시대

우리가 **생명 운반자**로 불리는 것 때문에 너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성에 생명체를 운반할 수 있고, 운반하기도 하지만, **유란시아**에는 어떤 생명체도 가져오지 않았다. **유란시아** 생명체는 독특하고, 이 행성에 고유하다. 이 구체{球體}는 생명체_변경 세계이며; 이곳에 나타난 모든 생명체는 바로 여기 행성에서 우리가 조직했으며; **유란시아**와 똑같은 생명체 실존이 있는 다른 세계는, **사타니아** 전체, 심지어 **네바돈** 전역에도 없다.

550,000,000년 전에, **생명 운반자 단체**가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영적 권능 및 초{超}물리적 세력과 협동해서, 이 세계의 원래 생명체 원형을 조직하고 창시했으며, 이 영역에 있는 쾌적한 물에 그것을 심었다. **행성 왕자 캘리개스 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행성외계{行星外界} 인격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독창적이고 균등하며 동시에 이식{移植}한 3개의 해양_생명체에서 기원했다. 3개의 이 생명체 이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는데: 중부 이식, 즉 **유라시아-아프리카** 지역, 동부 이식, 즉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그리고 **그린랜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부 이식 지역이다.

500,000,000년 전에, 원시 해양 식물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남_북 아메리카**를 위시하여 **그린랜드**와 북극 땅 덩어리는, 서쪽 방향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동쪽과 서쪽에 바다 골짜기, 즉 본래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조성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했다. **남극 대륙**과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이 가리키는 육지가 남쪽과 동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날부터 멀리 떠내려갔다.

우리는 분리된 대륙 땅 덩어리의 동_서 방향 골짜기에 있는, 중앙 바다의 보호된 열대 기후의 만{灣}들 속에, 원시 형태의 해양 생명체를 심었다. 세 개의 해양 생명체 이식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목적인 바는, 나중에 땅이 분리되어 나갈 때, 각 대륙 땅 덩어리가 온화한 바닷물 속에 이 생명체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땅 위의 생명체가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표류하는 이 대륙 땅 덩어리들을 거대한 해양의 물이 분리될 것을 미리 내다봤다.

plasm as are some of the longer rays of radiant energy. The implanted life of the Life Carriers is fully resistant to all of this amazing flood of the short space rays of universe energy.

58:3.5 (667.4) All of these essential cosmic conditions had to evolve to a favorable status before the Life Carriers could actually begin the establishment of life on Urantia.

4. THE LIFE-DAWN ERA

58:4.1 (667.5) That we are called Life Carriers should not confuse you. We can and do carry life to the planets, but we brought no life to Urantia. Urantia life is unique, original with the planet. This sphere is a life-modification world; all life appearing hereon was formulated by us right here on the planet; and there is no other world in all Satania, even in all Nebadon, that has a life existence just like that of Urantia.

58:4.2 (667.6) 550,000,000 years ago the Life Carrier corps returned to Urantia. In co-operation with spiritual powers and superphysical forces we organized and initiated the original life patterns of this world and planted them in the hospitable waters of the realm. All planetary life (aside from extraplanetary personalities) down to the days of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had its origin in our three original, identical, and simultaneous marine-life implantations. These three life implantations have been designated as: the *central* or Eurasian-African, the *eastern* or Australasian, and the *western*, embracing Greenland and the Americas.

58:4.3 (668.1) 500,000,000 years ago primitive marine vegetable life was well established on Urantia. Greenland and the arctic land mass, together with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beginning their long and slow westward drift. Africa moved slightly south, creating an east and west trough, the Mediterranean basin, between itself and the mother body. Antarctica, Australia, and the land indicated by the islands of the Pacific broke away on the south and east and have drifted far away since that day.

58:4.4 (668.2) We had planted the primitive form of marine life in the sheltered tropic bays of the central seas of the east-west cleavage of the breaking-up continental land mass. Our purpose in making three marine-life implantations was to insure that each great land mass would carry this life with it, in its warm-water seas, as the land subsequently separated. We foresaw that in the later era of the emergence of land life large oceans of water would separate these drifting continental land masses.

5. 대륙의 표류

대륙의 땅은 계속 표류했다. 지구 중심은, 입방 인치 당 거의 25,000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중력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쇠처럼 농도가 짙고 단단해졌으며, 내부 깊숙한 곳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가열된 상태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점차 증가하고, 중심 부분은 태양표면 온도보다 약간 높다.

지구 덩어리 표면으로부터 1,000마일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바위로 구성돼 있다. 그 밑으로는 더 조밀하고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초기에 대기권이 생기기 이전 시대 내내, 지구가 뜨겁게 가열되고 녹아서 거의 액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거운 금속 성분이 안쪽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오늘날 지구 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는 금속 성분은, 고대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것과, 나중에 대규모의 용암으로 흘러나온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후기에 운석이 쌓인 것이다.

지표층{地表面層}은 약 40마일 두께였다. 이 바깥쪽 껍질을 다양한 두께의 녹아있는 현무암 바다가 받쳐줬고, 껍질은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바다는 녹아있는 용암으로 된 유동성의 층으로, 높은 압력 아래서 유지됐지만, 변화하는 지구 압력을 균등하게 만들려고 항상 이곳저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졌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 표면을 안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대륙들은, 녹아있는 현무암으로 이뤄진 부드럽고 폭신한 이 바다 위에서 여전히 떠다닌다. 이런 보호 환경이 없었다면, 훨씬 심각한 지진이 온 세상을 흔들어서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지진은 화산 폭발 때문이 아니라, 딱딱한 지각이 미끄러지고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각의 용암층{鎔巖層}이 냉각되면 화강암이 된다. 유란시아의 평균 비중은 물 비중의 5.5배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화강암의 비중은 물 비중의 3배보다 조금 가볍다. 지구 중심은 물 비중의 열두 배에 해당된다.

바다 밑바닥은 땅 덩어리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이 때문에 대륙들이 물 위에 떠있도록 만든다. 바다 밑바닥이 해수면 위로 돌출하게 되면, 대체로 현무암으로 돼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현무암은 땅 덩어리를 이루는 화강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용암 형태다. 다시 말해서, 대륙이 해저층{海底層}보다 가볍지 않다면, 중력이 대양의 가장자리를 땅 위로 올라오게 하겠지만, 그런 현상은 관측될 수 없다.

또한 대양의 무게는 해저층에 점점 더 센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기도하다. 낮은 곳에 있으나 비교적 더 무거운 해저층은, 누르고 있는 물의 무게와 더불어, 높은 곳에 있지만 훨씬 가벼운 대륙들의 무게와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대륙은

5. THE CONTINENTAL DRIFT

58:5.1 (668.3)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The earth's core had become as dense and rigid as steel, being subjected to a pressure of almost 25,000 tons to the square inch, and owing to the enormous gravity pressure, it was and still is very hot in the deep interior. The temperature increases from the surface downward until at the center it is slightly above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sun.

58:5.2 (668.4) The outer one thousand miles of the earth's mass consists principally of different kinds of rock. Underneath are the denser and heavier metallic elements. Throughout the early and preatmospheric ages the world was so nearly fluid in its molten and highly heated state that the heavier metals sank deep into the interior. Those found near the surface today represent the exudate of ancient volcanoes, later and extensive lava flows, and the more recent meteoric deposits.

58:5.3 (668.5) The outer crust was about forty miles thick. This outer shell was supported by, and rested directly upon, a molten sea of basalt of varying thickness, a mobile layer of molten lava held under high pressure but always tending to flow hither and yon in equalization of shifting planetary pressures, thereby tending to stabilize the earth's crust.

58:5.4 (668.6) Even today the continents continue to float upon this noncrystallized cushiony sea of molten basalt. Were it not for this protective condition, the more severe earthquakes would literally shake the world to pieces. Earthquakes are caused by sliding and shifting of the solid outer crust and not by volcanoes.

58:5.5 (668.7) The lava layers of the earth's crust, when cooled, form granite. The average density of Urantia is a little more than five and one-half times that of water; the density of granite is less than three times that of water. The earth's core is twelve times as dense as water.

58:5.6 (668.8) The sea bottoms are more dense than the land masses, and this is what keeps the continents above water. When the sea bottoms are extruded above the sea level, they are found to consist largely of basalt, a form of lava considerably heavier than the granite of the land masses. Again, if the continents were not lighter than the ocean beds, gravity would draw the edges of the oceans up onto the land, but such phenomena are not observable.

58:5.7 (668.9) The weight of the oceans is also a factor in the increase of pressure on the sea beds. The lower but comparatively heavier ocean beds, plus the weight of the overlying water, approximate the weight of the higher but much lighter continents. But all continents tend to creep into the

대양 속으로 서서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해저의 고도와 동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륙의 압력은, 입방 인치 당 약 20,000파운드에 달한다. 즉, 이것은 해저로부터 15,000피트 솟아 있는 대륙의 압력일 것이다. 해저의 수압은, 입방 인치 당 약 5,000파운드에 불과하다. 이런 압력 차이가, 대륙이 대양의 바닥 쪽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 동안에 대양의 밑바닥이 눌림으로써, 홀로 있던 대륙 땅 덩어리가 아주 높이 들어 올려져서, 측면 압력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변두리를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밑에 있는 약간 점성을 갖는 용암지층 위로, 주변의 **태평양**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대륙의 압력을 아주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고대의 **아시아** 대륙 동쪽 연안에 폭 넓은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 동쪽 해안은 그 후로 항상, 인접한 해양 심해(深海)의 낭떠러지 위에 뻗고 있으며, 물 속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6. 과도기

450,000,000년 전에, 식물 생명체로부터 동물 생명체로 변환이 일어났다. 이런 변환은, 분리된 대륙들의 광대한 해변에서, 열대성 기후의 아늑한 만(灣)과 개펄의 얕은 물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모두 원래의 생명체 원형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인데, 차츰차츰 이뤄졌다. 초기의 원시 식물 형태의 생명체와, 후기의 잘 조직된 동물 유기체 사이에는, 많은 변환 단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과도기의 점액질(粘液質) 모양이 잔존하며, 이것들은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기 어렵다.

식물 생명체가 동물 생명체로 진화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고,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하고 향상된 유기체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너희는 동물계의 대분류(大分類) 사이뿐만 아니라, 인류 발생 이전에 가장 발달된 동물 유형의 선행인류(先行人類)와, 인간 종족 가운데 여명기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소위 “잃어버린 연결고리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급진적인 새로운 종족의 동물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것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이 아니며, 완전히 성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체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새로운 종족과 다양한 종류의 생명 유기체들의 갑작스런 출현은, 전적으로 생물학적이며, 엄밀히 말해서 자연스런 것이다.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초자연적 간섭이 전혀 없었다.

oceans. The continental pressure at ocean-bottom levels is about 20,000 pounds to the square inch. That is, this would be the pressure of a continental mass standing 15,000 feet above the ocean floor. The ocean-floor water pressure is only about 5,000 pounds to the square inch. These differential pressures tend to cause the continents to slide toward the ocean beds.

58:5.8 (669.1) Depression of the ocean bottom during the prelife ages had upthrust a solitary continental land mass to such a height that its lateral pressure tended to cause the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fringes to slide downhill, over the underlying semiviscous lava beds, into the waters of the surrounding Pacific Ocean. This so fully compensated the continental pressure that a wide break did not occur on the eastern shore of this ancient Asiatic continent, but ever since has that eastern coast line hovered over the precipice of its adjoining oceanic depths, threatening to slide into a watery grave.

6. THE TRANSITION PERIOD

58:6.1 (669.2) 450,000,000 years ago the transition from vegetable to animal life occurred. This metamorphosis took place in the shallow waters of the sheltered tropic bays and lagoons of the extensive shore lines of the separating continents. And this development, all of which was inherent in the original life patterns, came about gradually. There were many transitional stages between the early primitive vegetable forms of life and the later well-defined animal organisms. Even today the transition slime molds persist, and they can hardly be classified either as plants or as animals.

58:6.2 (669.3) Although the evolution of vegetable life can be traced into animal life, and though there have been found graduated series of plants and animals which progressively lead up from the most simple to the most complex and advanced organisms,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such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great divisions of the animal kingdom nor between the highest of the prehuman animal types and the dawn men of the human races. These so-called “missing links” will forever remain missing,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y never existed.

58:6.3 (669.4) From era to era radically new species of animal life arise. They do not evolve as the result of the gradual accumulation of small variations; they appear as full-fledged and new orders of life, and they appear suddenly.

58:6.4 (669.5) The sudden appearance of new species and diversified orders of living organisms is wholly biologic, strictly natural. There is nothing supernatural connected with these genetic mutations.

적당한 정도의 소금기 속에서 해양 동물 생명체가 진화했고, 해양 생명체의 동물 육체 속으로 바닷물이 순환되게 하는, 비교적 단순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양이 줄어들고 소금 농도가 점차 높아지자, 똑같은 상태의 이 동물은, 소금기를 보존하는 독창적 기법으로, 자신의 체액에 있는 소금기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량을 진화시켰는데, 이는 자신의 체액(體液)에 적당한 정도의 염화나트륨을 유지하는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민물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한 유기체들과 동일하다.

바위 속에 들어 있는 해양 생명체 화석을 연구하면, 이 원시 유기체들의 초기 적응 투쟁을 발견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이런 적응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환경은 늘 변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유기체는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려고 언제나 애쓰고 있다.

모든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장치는 물리적 법칙의 작용에 반응하게 돼있지만, 나중에 주어진 정신은, 타고난 뇌의 수용력에 맞춰서 보조 정신 영들이 기증한 것이다. 정신은, 육체의 진화로 생긴 것이 아니지만, 순전히 육체적이고 진화적인 발달이 허용하는 뇌(腦)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획득과 손실, 적응과 재적응이 거의 끝없이 순환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보하거나 전진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시공우주와 하나 되는 자는 존속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소멸한다.

7. 지질 역사책

생명체_태동기, 즉 원생대 시절에, 세계의 지각을 구성했던 방대한 암석류(巖石類) 덩어리가 지금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대에 쌓인 모든 퇴적물 밑에서 그것이 솟아오를 때, 오직 식물과 초기의 원시 동물 생명체만 화석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고대에 물로 인해서 퇴적된 이 암석 가운데 어떤 것은 그 후에 이뤄진 지층들과 뒤섞였고, 어떤 경우에는 초기 형태의 식물 생명체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뤄진 화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초기 해양 동물 유기체 중에서 더 원시적인 형태 일부가 간혹 발견될 수 있다. 초기 동물과 식물의 해양 생물체로 이뤄진 화석이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이 성층암 지층은, 분화되지 않은, 더 오래된 바위 표면에서 바로 발견될 수 있다.

이 시기의 화석은, 해초, 산호 모양의 식물, 원시 원생동물 종류들,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파도기 유기체들을 드러낸다. 그러나 초기 암석층에

58:6.5 (669.6) At the proper degree of saltiness in the oceans animal life evolved, and it was comparatively simple to allow the briny waters to circulate through the animal bodies of marine life. But when the oceans were contracted and the percentage of salt was greatly increased, these same animals evolved the ability to reduce the saltiness of their body fluids just as those organisms which learned to live in fresh water acquired the ability to maintain the proper degree of sodium chloride in their body fluids by ingenious techniques of salt conservation.

58:6.6 (669.7) Study of the rock-embraced fossils of marine life reveals the early adjustment struggles of these primitive organisms. Plants and animals never cease to make these adjustment experiments. Ever the environment is changing, and always are living organisms striving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se never-ending fluctuations.

58:6.7 (670.1) The physiologic equipment and the anatomic structure of all new orders of life are in response to the action of physical law, but the subsequent endowment of mind is a bestowal of the adjutant mind-spirits in accordance with innate brain capacity. Mind, while not a physical evolution, is wholly dependent on the brain capacity afforded by purely physical and evolutionary developments.

58:6.8 (670.2) Through almost endless cycles of gains and losses,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all living organisms swing back and forth from age to age. Those that attain cosmic unity persist, while those that fall short of this goal cease to exist.

7. THE GEOLOGIC HISTORY BOOK

58:7.1 (670.3) The vast group of rock systems which constituted the outer crust of the world during the life-dawn or Proterozoic era does not now appear at many points on the earth's surface. And when it does emerge from below all the accumulations of subsequent ages, there will be found only the fossil remains of vegetable and early primitive animal life. Some of these older water-deposited rocks are commingled with subsequent layers, and sometimes they yield fossil remains of some of the earlier forms of vegetable life, while on the topmost layers occasionally may be found some of the more primitive forms of the early marine-animal organisms. In many places these oldest stratified rock layers, bearing the fossils of the early marine life, both animal and vegetable, may be found directly on top of the older undifferentiated stone.

58:7.2 (670.4) Fossils of this era yield algae, corallike plants, primitive Protozoa, and spongelike transition organisms. But the absence of such

그런 화석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퇴적기{堆積期}에 어느 곳에도 실존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런 초기 시절 내내, 생명체는 매우 희소했고, 느리게나마 지구 표면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들은, 현재 지구 표면에 있거나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현재 대륙 전체의 약 8분의 1에 해당된다. 가장 오래된 성층암 지층인, 이 과도기 암석의 평균 두께는 약 1.5마일에 이른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대의 이 암석류가 4마일에 이르는 두께를 갖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지층 가운데 다수는 후대에 이뤄졌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원시 화석이 들어 있는 고대의 이 바위 지층이, **캐나다**의 동부,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지표면에 돌출 돼있다. 또한 거기에는 **펜실바니아**와 고대의 **애디론덱 산맥**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 나간 이 암석으로 이뤄진 동서 방향의 간헐적{間歇的} 능선이 있다. **뉴햄프셔**에서 **앨라바마**로,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로 이어지는 다른 능선들도 있다.

이 시절의 암석이 세계 곳곳에 노출돼 있지만,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랜드 캐년**과 **슈피리어 호수** 근처에 있는 것들처럼 쉽게 확인되는 곳은 없으며, 화석이 들어있고 여러 층으로 돼있는 그곳의 이 원시 암석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융기{隆起}와 지표면 변동을 입증한다.

지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들어있는 이 바위층은 주름지고 겹쳐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융기와 초기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기괴한 모습으로 뒤뉘어졌다. 이 시기의 용암 분출은 많은 철과 동과 납을 지구 표면 가까이 올려놓았다.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 크로아** 계곡보다 더 생생하게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장소는 이 지구 위에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는 127회에 달하는 연속적인 땅 위의 용암 분출과, 이어지는 침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바위 퇴적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상층부 암반의 퇴적 현상과 간헐적 용암 분출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것의 밑바닥이 지구 속 깊이 묻혀있더라도, 지나간 시대를 층화{層化}된 모양으로 기록한 지층 중에서 65내지 70여개가 현재 밖으로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던 이런 초기 시대에, 여러 차례의 연속된 침강과 융기가 발생했다. 지각은 비교적 안정된 후기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일찍 있었던 대륙의 이동에 따른 굽이치는 현상들, 즉 상승과 하강 작용으로 인해서,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

fossils in the early rock layers does not necessarily prove that living things were not elsewhere in existence at the time of their deposition. Life was sparse throughout these early times and only slowly made its way over the face of the earth.

58:7.3 (670.5) The rocks of this olden age are now at the earth's surface, or very near the surface, over about one eighth of the present land area. The average thickness of this transition stone, the oldest stratified rock layers, is about one and one-half miles. At some points these ancient rock systems are as much as four miles thick, but many of the layers which have been ascribed to this era belong to later periods.

58:7.4 (670.6) In North America this ancient and primitive fossil-bearing stone layer comes to the surface over the eastern,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of Canada. There is also an intermittent east-west ridge of this rock which extends from Pennsylvania and the ancient Adirondack Mountains on west through Michigan, Wisconsin, and Minnesota. Other ridges run from Newfoundland to Alabama and from Alaska to Mexico.

58:7.5 (670.7) The rocks of this era are exposed here and there all over the world, but none are so easy of interpretation as those about Lake Superior and in the Grand Canyon of the Colorado River, where these primitive fossil-bearing rocks, existing in several layers, testify to the upheavals and surface fluctuations of those faraway times.

58:7.6 (670.8) This stone layer, the oldest fossil-bearing stratum in the crust of the earth, has been crumpled, folded, and grotesquely twisted as a result of the upheavals of earthquakes and the early volcanoes. The lava flows of this age brought much iron, copper, and lead up near the planetary surface.

58:7.7 (670.9) There are few places on the earth where such activities are more graphically shown than in the St. Croix valley of Wisconsin. In this region there occurred one hundred and twenty-seven successive lava flows on land with succeeding water submergence and consequent rock deposition. Although much of the upper rock sedimentation and intermittent lava flow is absent today, and though the bottom of this system is buried deep in the earth, nevertheless, about sixty-five or seventy of these stratified records of past ages are now exposed to view.

58:7.8 (671.1) In these early ages when much land was near sea level, there occurred many successive submergences and emergences. The earth's crust was just entering upon its later period of comparative stabilization. The undulations, rises and dips, of the earlier continental drift contributed to the frequency of the periodic submergence of

원시 해양 생명체가 이뤄지던 이 시기에, 광대한 지역의 대륙 해안선이, 작게는 몇 피트에서 크게는 반 마일에 이르기까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고대에 형성된 사암과 역암 대부분은, 이 고대 해안선이 침전돼서 쌓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초기 성층{成層}에 들어 있는 퇴적암은, 생명체가 기원되기 훨씬 전에, 즉 지구 전역에 퍼진 대양이 나타났을 때 형성된 지층들 바로 위에 놓여 있다.

이런 과도기 암반 퇴적으로 이뤄진 지표층 가운데 일부에는 소량의 이판암이나 어두운 색깔의 점판암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유기질 탄소가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계속된 석탄기 동안 지구 위에 널리 퍼진 식물 생명체 형태들의 원조가 실존했음을 증명한다. 이런 암석층 속에 있는 동{銅} 성분 가운데 대부분은 물에서 침전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고대의 바위 틈 속에서 발견되며, 고대의 보호된 해안선에 있던 완만한 늪지대의 물에서 응축된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철광{鐵鑛}은, 층을 이루지 않은 고대의 암석에, 그리고 생명체가 형성되는 변환기에 층을 이룬 후대의 바위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는, 퇴적층과 분출된 지층에 들어 있다.

이 시절에, 생명체가 지구 전체의 물 속에 퍼져 있었으며; 해양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깊이가 얕은 광대한 내륙의 바다 밑 바닥은 풍부하고 울창하게 자라나는 식물로 점차 가득 차게 됐고, 반면에 해변의 물에는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체가 무리를 짓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계를 기록한 방대한 “바위 책”의 화석 기록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솜씨를 습득하기만 하면, 거대한 이 생물지질 기록에서 반드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대 해저 지층 가운데 다수가 현재 육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퇴적된 지층은, 그 초기에 생명체들이 어떻게 투쟁하면서 살아남았는지 보여준다. 어떤 너희 시인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도 한때는 살아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지금 행성에 거주하는 **유란시아 생명 운반자 단체**의 한 구성원이 제시했음]

the great land masses.

58:7.9 (671.2) During these times of primitive marine life, extensive areas of the continental shores sank beneath the seas from a few feet to half a mile. Much of the older sandstone and conglomerates represents the sedimentary accumulations of these ancient shores. The sedimentary rocks belonging to this early stratification rest directly upon those layers which date back far beyond the origin of life, back to the early appearance of the world-wide ocean.

58:7.10 (671.3) Some of the upper layers of these transition rock deposits contain small amounts of shale or slate of dark colors, indicating the presence of organic carbon and testifying to the existence of the ancestors of those forms of plant life which overran the earth during the succeeding Carboniferous or coal age. Much of the copper in these rock layers results from water deposition. Some is found in the cracks of the older rocks and is the concentrate of the sluggish swamp water of some ancient sheltered shore line. The iron mine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located in deposits and extrusions lying partly in the older unstratified rocks and partly in these later stratified rocks of the transition periods of life formation.

58:7.11 (671.4) This era witnesses the spread of life throughout the waters of the world; marine life has become well established on Urantia. The bottoms of the shallow and extensive inland seas are being gradually overrun by a profuse and luxuriant growth of vegetation, while the shore-line waters are swarming with the simple forms of animal life.

58:7.12 (671.5) All of this story is graphically told within the fossil pages of the vast “stone book” of world record. And the pages of this gigantic biogeologic record unfailingly tell the truth if you but acquire skill in their interpretation. Many of these ancient sea beds are now elevated high upon land, and their deposits of age upon age tell the story of the life struggles of those early days. It is literally true, as your poet has said, “The dust we tread upon was once alive.”

58:7.13 (671.6) [Presented by a member of the Urantia Life Carrier Corps now resident on the planet.]

제59편. 유란시아의 해양_생명체 시대

⇨ 058

유란시아 책

06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9편

유란시아의 해양_생명체 시대

섹션

소개

1.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체 삼엽충 시대
2. 대륙 홍수 제1기 무척추 동물기
3. 대 홍수 제2기 산호기_완족류기
4. 대륙 융기 단계 식물성 육지_생명체 기간 어류기
5. 외피_변화 단계 양치류_삼림의 석탄기 개구리 시대
6. 기후의 과도기 단계 종자_식물기 생물학적 시련기

소개

우리는 **유란시아**의 역사가 약 10억 년 전에 시작됐고, 다음과 같은 주요 다섯 단계의 시대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본다:

1. **전생명체기**{*前生命體紀*}는 지구가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때부터 생명체가 태동되기 직전까지, 약 4억 5,000만 년에 해당되는 첫 기간이다. 너희 학자들은 이 기간을 **시생대**{*始生代*}로 표시해 왔다.

2. **생명체가_썩트는_시기**는 그 다음 1억 5천만 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앞에 있는 전생명체기, 즉 격변기{*激變期*}와, 뒤에 있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_생명체 기간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시대는 너희 연구자들에게 **원생대**{*原生代*}로 알려져 있

PAPER 59

THE MARINE-LIFE ERA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Early Marine Life in the Shallow Seas
The Trilobite Age
2. The First Continental Flood Stage
The Invertebrate-Animal Age
3. The Second Great Flood Stage
The Coral Period—The Brachiopod Age
4. The Great Land-Emergence Stage
The Vegetative Land-Life Period
The Age of Fishes
5. The Crustal-Shifting Stage
The Fern-Forest Carboniferous Period
The Age of Frogs
6. The Climatic Transition Stage
The Seed-Plant Period
The Age of Biologic Tribulation

INTRODUCTION

59:0.1 (672.1) WE RECKON the history of Urantia as beginning about one billion years ago and extending through five major eras:

59:0.2 (672.2) 1. *The prelife era* extends over the initial four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from about the time the planet attained its present size to the time of life establishment. Your students have designated this period as the *Archeozoic*.

59:0.3 (672.3) 2. *The life-dawn era* extends over the nex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This epoch intervenes between the preceding prelife or cataclysmic age and the following period of more highly developed marine life. This era is known to

다.

3. 해양_생명체기는 그 다음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며, 너희는 대개 이 기간을 **고생대**(古生代)라고 알고 있다.

4. 초기 육상_생명체기는 그 다음 1억 년의 기간이며 **중생대**(中生代)로 알려져 있다.

5. 마지막 5천만년은 포유류기(哺乳類紀)에 해당된다. 최근의 이 시대는 **신생대**(新生代)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보듯이, 해양_생명체기는 너희 행성의 역사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여섯 개의 긴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지질학 영역과 생물학 분야, 둘 다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어떤 발전 단계를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대가 시작될 때, 바다 밑바닥, 광대한 대륙붕, 그리고 해변 가까이 있는 수많은 분지는, 풍부한 식물로 뒤덮여 있었다. 비교적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 생명체들이, 이미 선행{先行}하는 식물 유기체로부터 발전해서 나타났고, 초기 동물 유기체들은, 많은 내륙해(內陸海)가 원시 해양 생명체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 땅 덩어리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점차 퍼져 나갔다. 이런 초기 유기체 중에서 극소수만이 껍데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시대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생명체_기록을 보존하는, 그 위대한 “바위책”의 처음 장{章}들을 위한 무대가 준비됐다.

북 아메리카 대륙에는 전체 해양_생명체기 화석이 엄청나게 포함된 퇴적층들이 있다. 가장 처음에 생긴 오래된 지층은, 널리 퍼진 침식 퇴적층 때문에, 앞에 있는 기간의 후반부 지층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이 퇴적층은 행성이 발전한 이런 두 단계를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1.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체 삼엽충 시대

비교적 고요한 이 기간이 지구 표면에서 시작될 무렵에, 생명체는 대양의 해안선과 여러 내륙해에만 한정적으로 있었으며; 아무 육상{陸上} 유기체 형태도 아직 진화되지 못했다. 원시 해양 동물이 성공적으로 태동했고,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갖춰졌다. 아메바는 이런 초기 단계의 동물 생명체가 살아남은 대표적 예이며, 앞에 있는 과도기가 끝날 무렵에 모습을 드러냈다.

400,000,000년 전에, 식물 및 동물 해양 생명

your researchers as the *Proterozoic*.

59:0.4 (672.4) 3. The marine-life era covers the next two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nd is best known to you as the *Paleozoic*.

59:0.5 (672.5) 4. The early land-life era extends over the next one hundred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Mesozoic*.

59:0.6 (672.6) 5. The mammalian era occupies the last fifty million years. This recent-times era is known as the *Cenozoic*.

59:0.7 (672.7) The marine-life era thus covers about one quarter of your planetary history. It may be subdivided into six long periods, each characterized by certain well-defined developments in both the geologic realms and the biologic domains.

59:0.8 (672.8) As this era begins, the sea bottoms, the extensive continental shelves, and the numerous shallow near-shore basins are covered with prolific vegetation. The more simple and primitive forms of animal life have already developed from preceding vegetable organisms, and the early animal organisms have gradually made their way along the extensive coast lines of the various land masses until the many inland seas are teeming with primitive marine life. Since so few of these early organisms had shells, not many have been preserved as fossils. Nevertheless the stage is set for the opening chapters of that great “stone book” of the life-record preservation which was so methodically laid down during the succeeding ages.

59:0.9 (672.9) The continent of North America is wonderfully rich in the fossil-bearing deposits of the entire marine-life era. The very first and oldest layers are separated from the later strata of the preceding period by extensive erosion deposits which clearly segregate these two stages of planetary development.

1. EARLY MARINE LIFE IN THE SHALLOW SEAS THE TRILOBITE AGE

59:1.1 (673.1) By the dawn of this period of relative quiet on the earth's surface, life is confined to the various inland seas and the oceanic shore line; as yet no form of land organism has evolved. Primitive marine animals are well established and are prepared for the next evolutionary development. Amebas are typical survivors of this initial stage of animal life, having made their appearance toward the close of the preceding transition period.

59:1.2 (673.2) 400,000,000 years ago marine life, both

체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됐다. 지구의 기후는 약간씩 더워졌고 더욱 안정된 상태가 됐다. 여러 대륙, 특히 **남_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전체가 침수됐다. 새로운 대양들이 나타났고, 전에 있던 침수 지역이 더욱 확대됐다.

이때 식물류가 처음으로 땅 위로 상륙했으며, 해양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는 데 곧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최초의 다세포{多細胞} 동물들이, 단계적 종자{種子} 변환 없이 갑자기 출현했다. 삼엽충{三葉蟲}이 진화했고, 오랫동안 바다를 뒤덮었다. 해양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삼엽충 시대였다.

이 기간 후반부에, **북 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지각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으며; 산맥,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고지대의 땅들이, 서부 **인도** 지역과 남부 **유럽**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융기했다. **카리브 해** 지역 전체가 매우 높이 솟아올랐다.

390,000,000년 전에도, 땅은 여전히 융기돼 있었다. 동부와 서부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퇴적된 암석층이 발견될 수 있으며,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의 암석도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화석이 들어 있는 퇴적암들로 구성된 땅 덩어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손가락 모양의 긴 만{灣}이 여럿 있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평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침강은, 후기에 일어난 대륙의 분리, 즉 대륙의 유동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지표면의 조정 때문이었다.

380,000,000년 전에, **아시아** 대륙이 가라앉았으며, 다른 대륙들은 일시적으로 융기돼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서양**이, 인접한 전{全} 해안선을 광범하게 침식시켰다. 그때 북부 **대서양**, 즉 **북극해**는, 남부의 **걸프** 바닷물과 연결돼 있었다. 남부에 있는 이 바다가 **아팔라치아** 해구{海溝}로 유입됐을 때, 그 물결이 **알프스**만큼 높은 산들을 향해서 동쪽 지역으로 갑자기 밀어닥쳤지만, 대륙들은 대개, 완만한 낮은 지대, 즉 거의 보잘것없는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에 침전된 퇴적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역암{礫岩} -- 해변 근처에 퇴적된 물질.

2. 사암{砂岩} -- 얇은 물이기는 하지만, 물결에 진흙 침전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진 퇴적층.

3. 이판암{泥板岩} -- 보다 잔잔한 깊은 물 속에

vegetable and animal, is fairly well distributed over the whole world. The world climate grows slightly warmer and becomes more equable. There is a general inundation of the seashores of the various continents, particularly of North and South America. New oceans appear, and the older bodies of water are greatly enlarged.

59:1.3 (673.3) Vegetation now for the first time crawls out upon the land and soon makes considerable progress in adaptation to a nonmarine habitat.

59:1.4 (673.4) Suddenly and without gradation ancestry the first multicellular animals make their appearance. The trilobites have evolved, and for ages they dominate the seas. From the standpoint of marine life this is the trilobite age.

59:1.5 (673.5) In the later portion of this time segment much of North America and Europe emerged from the sea. The crust of the earth was temporarily stabilized; mountains, or rather high elevations of land, rose along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over the West Indies, and in southern Europe. The entire Caribbean region was highly elevated.

59:1.6 (673.6) 39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still elevated. Over parts of eastern and western America and western Europe may be found the stone strata laid down during these times, and these are the oldest rocks which contain trilobite fossils. There were many long fingerlike gulfs projecting into the land masses in which were deposited these fossil-bearing rocks.

59:1.7 (673.7) Within a few million years the Pacific Ocean began to invade the American continents. The sinking of the land was principally due to crustal adjustment, although the lateral land spread, or continental creep, was also a factor.

59:1.8 (673.8) 380,000,000 years ago Asia was subsiding, and all other continents were experiencing a short-lived emergence. But as this epoch progressed, the newly appearing Atlantic Ocean made extensive inroads on all adjacent coast lines. The northern Atlantic or Arctic seas were then connected with the southern Gulf waters. When this southern sea entered the Appalachian trough, its waves broke upon the east against mountains as high as the Alps, but in general the continents were uninteresting lowlands, utterly devoid of scenic beauty.

59:1.9 (673.9) The sedimentary deposits of these ages are of four sorts:

59:1.10 (673.10) 1. Conglomerates — matter deposited near the shore lines.

59:1.11 (673.11) 2. Sandstones — deposits made in shallow water but where the waves were sufficient to prevent mud settling.

59:1.12 (673.12) 3. Shales — deposits made in the

이뤄진 퇴적층.

4. 석회암{石灰岩}--깊은 물 속에 있는 삼엽충 껍데기의 퇴적층을 포함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삼엽충 화석은 뚜렷이 식별되는 특정한 변이들과 함께, 어떤 근본적인 균일성을 보여준다. 세 개의 원래 생명체 이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기 동물은 특색이 있었으며;**서반구**{西半球}에서 출현하는 초기 동물은, **유라시아** 집단에 속한 동물과 다르고, **오스트랄라시아** 혹은 **오스트랄리아** 남극 대륙 유형과도 약간 달랐다.

370,000,000년 전에, 남 북 아메리카에서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이 물속에 가라앉았고, 이어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도 가라앉았다. 북 아메리카에서 겨우 어떤 지역들만 **캠브리아기**의 얕은 바다 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500만 년 후, 땅이 융기되기 전에 바다가 먼저 줄어들었다. 땅이 침강하고 융기하는 이 모든 현상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느리게 일어났다.

삼엽충 화석이 들어 있는 이 시기의 지층은, 중앙 **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대륙 여기저기에 노출돼 있다. 이 암석층이 여러 지역에서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맥에서는 압력과 겹쳐지는 현상으로 기울어지고 뒤틀어졌다. 그리고 이런 압력이, 많은 지역에서 퇴적물의 본래 성질을 바꿨다. 사암은 석영으로 바뀌었고, 이관암은 점판암으로 변화했으며, 한편 석회암은 대리석으로 변질됐다.

360,000,000년 전에, 땅은 여전히 융기되고 있었다. 남 북 아메리카는 잘 솟아올라 있었다. 깊이 가라앉았던, **웨일스** 지역을 제외한 **영국**의 섬들과 서부 **유럽** 지역이 솟아올랐다. 이 시대 동안에 거대한 빙하층은 형성돼 있지 않았다. **유럽**, **아프리카**, **중국**, 및 **오스트랄리아**에서, 이 지층과 연관돼 나타났다고 짐작되는 빙하 퇴적물은, 고립된 산의 빙하 때문이거나, 또는 나중에 발생한 빙하 조각들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기후는 대륙성{大陸性}이 아닌 해양성{海洋性}이었다. 남부의 바다들은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으며, **북 아메리카** 지역을 거쳐서 양극 지방으로 퍼져갔다. **걸프 해류**가 **북 아메리카** 중심지역을 지나서, 동쪽으로 굽어져 **그린란드** 해안을 물에 잠기게 하고 온도를 가열시켜서, 현재는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대륙을 진정한 열대성 기후의 낙원으로 만들었다.

해양 생명체가 온 세계에 고루 퍼져 있었고, 해초, 단일 세포의 유기체, 단순한 형태의 해면동물{海綿動物}, 삼엽충, 그리고 다른 갑각류의 새우, 게, 및 가재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3천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완족류{腕足類}가 출현했고, 그 중에서 200가지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 동물들은 실제로 오늘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양한 초기 생명체의 표본이다.

deeper and more quiet water.

59:1.13 (673.13) 4. Limestone — including the deposits of trilobite shells in deep water.

59:1.14 (673.14) The trilobite fossils of these times present certain basic uniformities coupled with certain well-marked variations. The early animals developing from the three original life implantations were characteristic; those appearing in the Western Hemisphere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urasian group and from the Australasian or Australian-Antarctic type.

59:1.15 (674.1) 370,000,000 years ago the great and almost total submergence of North and South America occurred, followed by the sinking of Africa and Australia. Only certain parts of North America remained above these shallow Cambrian seas. Five million years later the seas were retreating before the rising land. And all of these phenomena of land sinking and land rising were undramatic, taking place slowly over millions of years.

59:1.16 (674.2) The trilobite fossil-bearing strata of this epoch outcrop here and there throughout all the continents except in central Asia. In many regions these rocks are horizontal, but in the mountains they are tilted and distorted because of pressure and folding. And such pressure has, in many places, changed the original character of these deposits. Sandstone has been turned into quartz, shale has been changed to slate, while limestone has been converted into marble.

59:1.17 (674.3) 36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still rising.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well up. Western Europe and the British Isles were emerging, except parts of Wales, which were deeply submerged. There were no great ice sheets during these ages. The supposed glacial deposits appearing in connection with these strata in Europe, Africa, China, and Australia are due to isolated mountain glaciers or to the displacement of glacial debris of later origin. The world climate was oceanic, not continental. The southern seas were warmer than now, and they extended northward over North America up to the polar regions. The Gulf Stream coursed over the central portion of North America, being deflected eastward to bathe and warm the shores of Greenland, making that now ice-mantled continent a veritable tropic paradise.

59:1.18 (674.4) The marine life was much alike the world over and consisted of the seaweeds, one-celled organisms, simple sponges, trilobites, and other crustaceans — shrimps, crabs, and lobsters. Three thousand varieties of brachiopods appeared at the close of this period, only two hundred of which have survived. These animals represent a variety of early life which has come down to the present time practically unchanged.

그러나 삼엽충이 가장 우세한 생물이었다. 그것은 암수 구분이 있는 동물이었고, 여러 형태가 있었으며; 수영은 잘 하지 못했고, 물위에 떠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기어 다녔으며, 나중에 나타난 천적{天敵}들로부터 공격받을 때에는 동그랗게 말았다. 그것들은 2인치 내지 1푸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및 “진흙을 먹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 주로 무생물을 먹고 살았던 “진흙을 먹는” 종류의 역량은, -- 존재 가능했던 최후의 다세포 동물이면서 -- 어떻게 하여 그것들이 크게 번성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준다.

이것이 지구 역사에서 5천만 년에 걸친 긴 기간 끝에 나타난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풍경이었고,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캠브리아기**라고 지칭한다.

2. 대륙 홍수 제1기 무척추 동물기

이 시기의 특징인, 일시적 대륙 융기와 침강 현상은,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화산 작용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 대륙이 연속해서 융기하고 침강하는 전 과정 내내, **아시아** 대륙의 모체{母體} 육지는, 다른 땅 덩어리들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 대륙은 침수 현상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가라앉는 방향이 틀렸으며, 초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대륙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퇴적암 형성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에 **아시아** 대륙은 모든 땅 덩어리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50,000,000년 전에, 중앙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 대홍수기{大洪水期}가 시작됐다. 땅 덩어리들은 반복해서 물로 뒤덮였으며; 알기는 하지만 넓게 분포해 흔들거리는 내륙해{內陸海} 수면 위로, 연안에 있는 구릉지들만 솟아올라 있었다. 이 기간의 특징은 3대{三大} 범람이었지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대륙들이 다시 융기했고, 전체 육지는 현재보다 15퍼센트 정도 더 컸다. **카리브해** 지역은 아주 높이 솟아올랐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화산 작용이 계속되는 한편 육지의 유동{流動}은 적었기 때문이다.

340,000,000년 전에,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광활한 육지가 다시 가라앉게 됐다. 세계 전역에서 대양들의 물이 전반적으로 뒤섞였다. 이때는 대단한 석회암기였고, 이때 형성된 암석 대부분은 석회 성분을 분비하는 해초로 말미암아 퇴적됐다.

수백만 년 후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부분이 물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서반구**에서는 **태평양**의 한 자락만 현재의 **로키산맥**과 **멕시코** 지

59:1.19 (674.5) But the trilobites were the dominant living creatures. They were sexed animals and existed in many forms; being poor swimmers, they sluggishly floated in the water or crawled along the sea bottoms, curling up in self-protection when attacked by their later appearing enemies. They grew in length from two inches to one foot and developed into four distinct groups: carnivorous, herbivorous, omnivorous, and “mud eaters.” The ability of the latter group largely to subsist on inorganic matter — being the last multicelled animal that could — explains their great increase and long survival.

59:1.20 (674.6) This was the biogeologic picture of Urantia at the end of that long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embracing fifty million years, designated by your geologists as the *Cambrian*.

2. THE FIRST CONTINENTAL FLOOD STAGE THE INVERTEBRATE-ANIMAL AGE

59:2.1 (674.7) The periodic phenomena of land elevation and land sinking characteristic of these times were all gradual and nonspectacular, being accompanied by little or no volcanic action. Throughout all of these successive land elevations and depressions the Asiatic mother continent did not fully share the history of the other land bodies. It experienced many inundations, dipping first in one direction and then another, more particularly in its earlier history, but it does not present the uniform rock deposits which may be discovered on the other continents. In recent ages Asia has been the most stable of all the land masses.

59:2.2 (675.1) 350,000,000 years ago saw the beginning of the great flood period of all the continents except central Asia. The land masses were repeatedly covered with water; only the coastal highlands remained above these shallow but widespread oscillatory inland seas. Three major inundations characterized this period, but before it ended, the continents again arose, the total land emergence being fifteen per cent greater than now exists. The Caribbean region was highly elevated. This period is not well marked off in Europe because the land fluctuations were less, while the volcanic action was more persistent.

59:2.3 (675.2) 340,000,000 years ago there occurred another extensive land sinking except in Asia and Australia. The waters of the world's oceans were generally commingled. This was a great limestone age, much of its stone being laid down by lime-secreting algae.

59:2.4 (675.3) A few million years later large portions of the American continents and Europe began to emerge from the water. In the Western Hemisphere only an arm of the Pacific Ocean

역에 남아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330,000,000년 전에, 넓은 땅이 다시 물위로 올라오면서, 비교적 고요한 시간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지역이 예외였는데, **북 아메리카**의 **켄터키** 동부 지역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으며, 세상에 알려진 단일 화산 활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 화산재가, 500입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15내지 20피트 두께로 쌓일 정도였다.

320,000,000년 전에, 이 기간의 세 번째 주요 홍수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물에 잠겼던 땅들 전체가 이번 홍수로 다시 뒤덮였으며,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 사방으로 더욱 확대됐다. **동부 북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물 아래로 10,000내지 15,000피트 깊이로 잠겼다.

31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남쪽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육지들이 다시 솟아올랐다. **멕시코**가 솟아올랐고, 그렇게 조성된 **걸프 해**는 그 후로 계속 유지돼왔다.

이 기간에 생명체는 계속 진화했다. 세상은 다시 고요했고 비교적 평온했으며;기후는 온화하고 일정했으며;육상 식물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식물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명체 원형들이 잘 발달됐다.

이때는 식물에서 동물로 변환되는 일이 이미 발생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개개의 동물 유기체가 진화되는 대단한 시기이기도 했다. 척추를 가진 종류보다는 열등한 각 생명체 유형이, 이 시기 동안에 퇴적된 암석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양 동물군(動物群)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런 동물은 모두 해양 유기체였다. 해안선을 따라서 땅 속에 숨어 있는 약간의 지렁이 유형을 제외하고는, 아직 육상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도 아직 대륙에 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숨 쉬는 생물체들이 실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더 원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 생명체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삼엽충은 여전히 풍부했다. 이런 작은 동물은, 수만 가지 형태로 존재했으며, 현대 갑각류의 원조였다. 삼엽충 가운데 일부는 25내지 4,000개의 작은 눈을 가졌으며;또 어떤 것은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삼엽충이 몇 가지 다른 형태의 무척추(無脊椎)동물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사라지

remained over Mexico and the present Rocky Mountain regions, but near the close of this epoch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again began to sink.

59:2.5 (675.4) 330,000,000 years ago marks the beginning of a time sector of comparative quiet all over the world, with much land again above water. The only exception to this reign of terrestrial quiet was the eruption of the great North American volcano of eastern Kentucky, one of the greatest single volcanic activities the world has ever known. The ashes of this volcano covered five hundred square miles to a depth of from fifteen to twenty feet.

59:2.6 (675.5) 320,000,000 years ago the third major flood of this period occurred. The waters of this inundation covered all the land submerged by the preceding deluge, while extending farther in many directions all over the Americas and Europe. Easter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were from 10,000 to 15,000 feet under water.

59:2.7 (675.6) 310,000,000 years ago the land masses of the world were again well up excepting the southern parts of North America. Mexico emerged, thus creating the Gulf Sea, which has ever since maintained its identity.

59:2.8 (675.7) The life of this period continues to evolve. The world is once again quiet and relatively peaceful; the climate remains mild and equable; the land plants are migrating farther and farther from the seashores. The life patterns are well developed, although few plant fossils of these times are to be found.

59:2.9 (675.8) This was the great age of individual animal organismal evolution, though many of the basic changes, such as the transition from plant to animal, had previously occurred. The marine fauna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every type of life below the vertebrate scale was represented in the fossils of those rocks which were laid down during these times. But all of these animals were marine organisms. No land animals had yet appeared except a few types of worms which burrowed along the seashores, nor had the land plants yet overspread the continents; there was still too much carbon dioxide in the air to permit of the existence of air breathers. Primarily, all animals except certain of the more primitive on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dependent on plant life for their existence.

59:2.10 (676.1) The trilobites were still prominent. These little animals existed in tens of thousands of patterns and were the predecessors of modern crustaceans. Some of the trilobites had from twenty-five to four thousand tiny eyelets; others had aborted eyes. As this period closed, the trilobites shared domination of the seas with several other forms of invertebrate life. But they

게 됐다.

석회{石灰}를 분비하는 조류{藻類}가 널리 퍼졌다. 산호의 초기 조상에 해당하는 종족이 수천 가지 있었다. 바다 벌레가 풍성했고, 아주 다양한 해파리가 있었지만 그 뒤로 멸종됐다. 산호와 후기 유형의 해면{海綿}이 진화됐다. 두족류{頭足類}가 잘 발달됐고, 오늘날의 진주색 앵무조개, 낙지, 뼈오징어, 오징어 등으로 남아 있다.

수많은 다양한 외피 동물이 있었지만, 그 껍데기는 후대의 동물이 가졌던 것과는 달리, 방어 목적에 충분할 정도는 못됐다. 고대의 바다물에는 달팽이 류가 생겼으며, 그 중에는 홀겹의 바다달팽이, 고둥, 그리고 다른 달팽이들이 포함됐다. 중간에 있는 수백만 년의 기간에, 그 당시 모습대로 쌍각조개류 동물이 생겼고, 긴 조개, 대합, 굴, 그리고 가리비 등이 포함됐다. 판막{瓣膜} 껍질을 가진 유기체 역시 진화돼 갔고, 이 완족류{腕足類}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속에 살았으며; 여닫이 모양, 톱니 모양,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보호막이 배열돼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해양 생명체의 둘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며,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오르도비스기{紀}**로 분류한다.

3. 대 홍수 제2기 산호기_완족류기

300,000,000년 전에, 대륙이 또 한 번 물에 잠기는 긴 기간이 시작됐다. 고대 **실루리아계** 바다들의 남쪽과 북쪽을 향한 침식이, **유럽**과 **북 아메리카** 전역에 만{灣}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륙이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으므로, 해안선에는 퇴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에는 석회질 껍질을 가진 생명체로 가득 찼으며, 이 조개 껍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점차 매우 두꺼운 석회암층을 이뤘다. 이것이 넓게 분포된 최초의 석회암 퇴적층이고, 실제로는 **유럽**과 **북 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지만,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층의 두께는 평균 약 1,000피트에 달하지만, 이 퇴적층 가운데 다수는 기울어짐, 솟아오름, 그리고 단층 작용으로 크게 변형됐고, 많은 부분은 수정, 이관암, 대리석 등으로 변했다.

불타는 바위와 용암은 이 기간의 암석층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큰 화산이 폭발했던 남부 **유럽**과 동부의 **메인**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린 **퀘벡**의 지층에서만 예외적으로 발견된다. 화산 작용은 거의 지나간 상태였다. 물에서 퇴적되는 작용이 쥔

utterly perished during the beginning of the next period.

59:2.11 (676.2) Lime-secreting algae were widespread. There existed thousands of species of the early ancestors of the corals. Sea worms were abundant, and there were many varieties of jellyfish which have since become extinct. Corals and the later types of sponges evolved. The cephalopods were well developed, and they have survived as the modern pearly nautilus, octopus, cuttlefish, and squid.

59:2.12 (676.3) There were many varieties of shell animals, but their shells were not then so much needed for defensive purposes as in subsequent ages. The gastropods were present in the waters of the ancient seas, and they included single-shelled drills, periwinkles, and snails. The bivalve gastropods have come on down through the intervening millions of years much as they then existed and embrace the mussels, clams, oysters, and scallops. The valve-shelled organisms also evolved, and these brachiopods lived in those ancient waters much as they exist today; they even had hinged, notched, and other sorts of protective arrangements of their valves.

59:2.13 (676.4) So ends the evolutionary story of the second great period of marine life, which is known to your geologists as the *Ordovician*.

3. THE SECOND GREAT FLOOD STAGE THE CORAL PERIOD — THE BRACHIOPOD AGE

59:3.1 (676.5) 300,000,000 years ago another great period of land submergence began. The southward and northward encroachment of the ancient Silurian seas made ready to engulf most of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land was not elevated far above the sea so that not much deposition occurred about the shore lines. The seas teemed with lime-shelled life, and the falling of these shells to the sea bottom gradually built up very thick layers of limestone. This is the first widespread limestone deposit, and it covers practically all of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only appears at the earth's surface in a few places. The thickness of this ancient rock layer averages about one thousand feet, but many of these deposits have since been greatly deformed by tilting, upheavals, and faulting, and many have been changed to quartz, shale, and marble.

59:3.2 (676.6) No fire rocks or lava are found in the stone layers of this period except those of the great volcanoes of southern Europe and eastern Maine and the lava flows of Quebec. Volcanic action was largely past. This was the height of great water deposition; there was little or no

고조에 달했고,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거의 없었다.

290,000,000년 전에, 바다는 대륙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주변 해양의 바닥이 가라앉고 있었다. 대륙 덩어리들은 다시 융기될 때까지 거의 변화 없었다. 모든 대륙마다 초기의 산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지각 변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스피츠버겐**으로 이어지는 **칼레도니아 산맥**이었다.

이때 형성된 퇴적층에서는 천연 가스, 석유, 아연, 납 등이 많이 발견되며, 천연 가스와 석유는 앞에 있었던 육지의 침수기 동안에 식물과 동물 성분이 엄청나게 퇴적된 것에서 형성됐고, 한편 광물질 퇴적층은 완만하게 흐르는 물에서 퇴적된 것임을 나타낸다. 바위 소금의 퇴적층 가운데 다수는 이 기간에 속한다.

삼엽충이 급격히 감소됐고, 비교적 큰 연체동물 또는 두족류{頭足類}가 주종을 이뤘다. 이 동물들은 15피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직경은 1푸트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됐다. 이런 동물류는 **갑자기** 나타났고, 바다 생명체의 주종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 큰 화산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다. 이때 **지중해** 해구{海溝}, 그리고 특히 **영국 섬**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광대한 화산 폭발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때 분출해서 **영국 섬** 지역을 덮었던 용암은, 오늘날 25,000피트 두께의 변형된 용암과 암석층으로 나타난다. 이 암석층은, 얇은 바다 지층 위로 널리 퍼져 나간, 간헐적인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퇴적암 층이 분산됐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격렬한 지진이 북 **유럽**과,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했다.

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로 있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의 대륙 해안을 적셨다. 완족류를 비롯한 다른 해양 생명체 화석이, 북극 근처의 퇴적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복족류, 완족류, 해면체동물, 그리고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초가 계속 증가했다.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실루리아계** 바다들이 남부와 북부 해양의 물과 다시 섞이면서, 두 번째로 확장하는 현상이 있었다. 두족류가 해양 생명체의 주종을 이뤘고, 한편 연합된 형태의 생명체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분화{分化}됐다.

280,000,000년 전에, 대륙들은 **실루리아기**의 두 번째 침수 상태로부터 크게 솟아올랐다. 그 침수기에 퇴적된 바위 층은 북 **아메리카**에서 **나이아**

mountain building.

59:3.3 (676.7) 290,000,000 years ago the sea had largely withdrawn from the continents, and the bottoms of the surrounding oceans were sinking. The land masses were little changed until they were again submerged. The early mountain movements of all the continents were beginning, and the greatest of these crustal upheavals were the Himalayas of Asia and the great Caledonian Mountains, extending from Ireland through Scotland and on to Spitzbergen.

59:3.4 (677.1) It is in the deposits of this age that much of the gas, oil, zinc, and lead are found, the gas and oil being derived from the enormous collections of vegetable and animal matter carried down at the time of the previous land submergence, while the mineral deposits represent the sedimentation of sluggish bodies of water. Many of the rock salt deposits belong to this period.

59:3.5 (677.2) The trilobites rapidly declined, and the center of the stage was occupied by the larger mollusks, or cephalopods. These animals grew to be fifteen feet long and one foot in diameter and became masters of the seas. This species of animal appeared *suddenly* and assumed dominance of sea life.

59:3.6 (677.3) The great volcanic activity of this age was in the European sector. Not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had such violent and extensive volcanic eruptions occurred as now took place around the Mediterranean trough and especially in the neighborhood of the British Isles. This lava flow over the British Isles region today appears as alternate layers of lava and rock 25,000 feet thick. These rocks were laid down by the intermittent lava flows which spread out over a shallow sea bed, thus interspersing the rock deposits, and all of this was subsequently elevated high above the sea. Violent earthquakes took place in northern Europe, notably in Scotland.

59:3.7 (677.4) The oceanic climate remained mild and uniform, and the warm seas bathed the shores of the polar lands. Brachiopod and other marine-life fossils may be found in these deposits right up to the North Pole. Gastropods, brachiopods, sponges, and reef-making corals continued to increase.

59:3.8 (677.5) The close of this epoch witnesses the second advance of the Silurian seas with another commingling of the water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oceans. The cephalopods dominate marine life, while associated forms of life progressively develop and differentiate.

59:3.9 (677.6) 280,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s had largely emerged from the second Silurian inundation. The rock deposits of this submergence

가라 석회암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위로 흐르는 지층이기 때문이다. 이 암석층은 동부의 산맥에서 **미시시피** 계곡 지역까지 이르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부 쪽으로는 더 이상 분포돼 있지 않다. 일부의 지층이 **캐나다**, **남 아메리카**의 일부,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 퍼져 있으며, 이런 **나이아가라** 계통 지층의 평균 두께는 약 600피트에 달한다. 역암, 이관암, 및 암염{巖鹽} 퇴적물이 **나이아가라** 퇴적층 바로 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 이것은 2차 침전물이 쌓인 것이다. 이 소금은 거대한 개펄에 가라앉았는데, 이 개펄은, 번갈아 가면서 바다에 열려 있다가 나중에 닫힌 후에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용액 속의 다른 물질과 함께 퇴적됐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 층이 70피트의 두께를 이루기도 한다.

기후는 일정하고 온화했으며, 바다 화석이 북극 지방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다는 소금기가 과도하여 생명체가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됐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기간이 끝나가면서, 극피동물{棘皮動物}이--곧 돌 백합이--크게 증가했으며, 백합 모양의 석회암 퇴적층으로 증명된다. 삼엽충은 거의 사라졌고, 연체동물이 바다를 계속 지배했으며;산호초 형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원시 형태의 물에서 사는 전갈류 동물이 비교적 적당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화해 나타났다. 그 직후에, 그리고 **갑자기**,--대기 중의 공기로 숨을 쉬는--순종{純種} 전갈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발전이, 2,500만 년 동안 계속된 제3기의 해양 생명체 기간을 끝맺었으며, 이 기간은 너희 연구진에게 **실루리아기**로 알려져 있다.

4. 대륙 융기 단계 식물성 육지_생명체 기간 어류기

육지와 물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바다가 긴 기간 비교적 승리를 거뒀지만, 육지가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대륙의 표류는 아직 많이 진척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세계의 모든 땅 덩어리가 가느다란 지협{地峽}과, 좁은 연결육지로 언제나 모두 연결돼 있었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상태로부터 대륙이 융기되자, 세계가 안정되고 생명체가 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끝나게 됐다. 이것은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별거벗고 보잘 것 없던 이전{以前} 시대의 풍경이 무성한 초목으로 옷을 입었고, 최초의 광대한 숲이 곧 나타나게 됐다.

are known in North America as Niagara limestone because this is the stratum of rock over which Niagara Falls now flows. This layer of rock extends from the eastern mountains to the Mississippi valley region but not farther west except to the south. Several layers extend over Canada, portions of South America, Australia, and most of Europe, the average thickness of this Niagara series being about six hundred feet. Immediately overlying the Niagara deposit, in many regions may be found a collection of conglomerate, shale, and rock salt. This is the accumulation of secondary subsidences. This salt settled in great lagoons which were alternately opened up to the sea and then cut off so that evaporation occurred with deposition of salt along with other matter held in solution. In some regions these rock salt beds are seventy feet thick.

59:3.10 (677.7) The climate is even and mild, and marine fossils are laid down in the arctic regions. But by the end of this epoch the seas are so excessively salty that little life survives.

59:3.11 (677.8) Toward the close of the final Silurian submergence there is a great increase in the echinoderms — the stone lilies — as is evidenced by the crinoid limestone deposits. The trilobites have nearly disappeared, and the mollusks continue monarchs of the seas; coral-reef formation increases greatly. During this age, in the more favorable locations the primitive water scorpions first evolve. Soon thereafter, and *suddenly*, the true scorpions — actual air breathers — make their appearance.

59:3.12 (678.1) These developments terminate the third marine-life period, covering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Silurian*.

4. THE GREAT LAND-EMERGENCE STAGE THE VEGETATIVE LAND-LIFE PERIOD THE AGE OF FISHES

59:4.1 (678.2) In the age-long struggle between land and water, for long periods the sea has been comparatively victorious, but times of land victory are just ahead. And the continental drifts have not proceeded so far but that, at times, practically all of the land of the world is connected by slender isthmuses and narrow land bridges.

59:4.2 (678.3) As the land emerges from the last Silurian inundation, an important period in world development and life evolution comes to an end. It is the dawn of a new age on earth. The naked and unattractive landscape of former times is becoming clothed with luxuriant verdure, and the first magnificent forests will soon appear.

이 시기의 해양 생명체는 초기의 종족 분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든 유형이 자유롭게 섞이고 결합했다. 완족류는 일찍이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를 맞았으며, 절지동물(節肢動物)이 그 뒤를 이었고, 만각류(蔓脚類)의 갑각동물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사건은 물고기 과(科)의 갑작스런 출현이었다. 그리하여 어류기(魚類紀)가 시작됐으며, 세계 역사에서 이 기간의 특징은 척추동물 유형의 출현이었다.

270,000,000년 전에, 대륙들이 모두 물위로 올라왔다. 수백만 년 동안에 그토록 큰 육지가 동시에 물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으며; 전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육지가 융기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

500만 년 후에는, **남 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지역의 대륙이 잠시 물에 잠겼고, **북 아메리카**에서는 한 동안의 침수가 거의 완료됐으며; 그 결과로 석회암 층이 500내지 5,000피트 두께로 형성됐다. 이런 **데보니**의 다양한 바다들이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돼, **북 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북극 내륙해는 **캘리포니아** 북부를 통해서 **태평양**과 연결됐다.

260,000,000년 전에, 대륙이 함몰되는 이 시기가 끝나갈 때, **북 아메리카**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및 **걸프**의 물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바닷물에 부분적으로 잠겼다. 최초의 **데보니아기** 홍수의 후반기 동안에 퇴적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000피트에 달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뤘던 산호초를 통해서, 그 내륙해들이 깨끗하고 알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산호초 퇴적층은, **루이스빌**과 **켄터키** 근처의 **오하이오 강** 강변에서 발견되며, 약 100피트의 두께이고,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산호가 들어 있다. 이런 산호초 형성은 **캐나다**와 북부 **유럽**을 거쳐서 북극 지역까지 확장됐다.

이런 침수기 이후에, 많은 해안선이 적지 않게 융기해서, 초기의 퇴적층들이 진흙이나 이판암으로 뒤덮였다. **데보니아기** 퇴적층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붉은 색의 사암층(砂巖層) 역시 그 속에 있으며, 이런 붉은 색 지층은 지구 표면 대부분에 퍼져 있고, **남 북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및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런 붉은 색 지층은 건조한 상태 또는 약간건조한 상태를 암시하지만, 이 시기의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했다.

이 기간 내내, **썬씨내티 섬**의 남동쪽 지역은 물위에 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제도**를 포함해서 **유럽** 서부 지역 대부분은 침수됐다. **웨일스, 독일**, 및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데보니아기**에 형성된 암석층의 두께는 20,000피트에 이른다.

59:4.3 (678.4) The marine life of this age was very diverse due to the early species segregation, but later on there was free commingling and association of all these different types. The brachiopods early reached their climax, being succeeded by the arthropods, and barnacles made their first appearance. But the greatest event of all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fish family. This became the age of fishes, that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characterized by the vertebrate type of animal.

59:4.4 (678.5) 270,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s were all above water.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not so much land had been above water at one time; it was one of the greatest land-emergence epochs in all world history.

59:4.5 (678.6) Five million years later the land areas of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Africa, northern Asia, and Australia were briefly inundated, in North America the submergence at one time or another being almost complete; and the resulting limestone layers run from 500 to 5,000 feet in thickness. These various Devonian seas extended first in one direction and then in another so that the immense arctic North American inland sea found an outlet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northern California.

59:4.6 (678.7) 260,000,000 years ago, toward the end of this land-depression epoch, North America was partially overspread by seas having simultaneous connection with the Pacific, Atlantic, Arctic, and Gulf waters. The deposits of these later stages of the first Devonian flood average about one thousand feet in thickness. The coral reefs characterizing these times indicate that the inland seas were clear and shallow. Such coral deposits are exposed in the banks of the Ohio River near Louisville, Kentucky, and are about one hundred feet thick, embracing more than two hundred varieties. These coral formations extend through Canada and northern Europe to the arctic regions.

59:4.7 (678.8) Following these submergences, many of the shore lines were considerably elevated so that the earlier deposits were covered by mud or shale. There is also a red sandstone stratum which characterizes one of the Devonian sedimentations, and this red layer extends over much of the earth's surface, being found in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Russia, China, Africa, and Australia. Such red deposits are suggestive of arid or semiarid conditions, but the climate of this epoch was still mild and even.

59:4.8 (679.1) Throughout all of this period the land southeast of the Cincinnati Island remained well above water. But very much of western Europe, including the British Isles, was submerged. In Wales, Germany, and other places in Europe the Devonian rocks are 20,000 feet thick.

250,000,000년 전에, 물고기 과{科}, 즉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의 모든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인 척추동물이 나타났다.

절지동물, 즉 갑각류 동물이 최초 척추동물의 원조였다. 물고기 과{科}가 나타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변경된 절지동물 원조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긴 몸체를 가졌던 반면, 다른 하나는 척추가 없고 턱이 없는 물고기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나 동물 세계에서 첫 척추동물이 북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자, 이런 예비적인 유형들은 재빨리 멸종됐다.

이 기간에 가장 큰 물고기 가운데 다수는 25에서 30피트 길이였고, 어떤 것은 이빨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상어는 이런 고대의 물고기가 살아남은 것이다. 허파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진화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물고기는 민물과 바닷물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

진정한 물고기 이빨과 해골의 뼈대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에서 발견될 수 있고, 태평양의 수많은 보호된 만{灣}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땅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해안을 따라서 풍부한 화석 층이 자리 잡고 있다.

육지에는 새로운 계열의 육상 식물이 급격히 퍼져 나갔다. 이때까지는 물가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거의 없었다. 이때, 갑자기, 열매 맺는 양치류 과{科}가 나타나 급속히 퍼져서, 솟아오르는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2피트 두께와 40피트 높이의 나무 유형들이 곧 발달했고; 나중에는 잎이 진화했으나, 이런 초기 품종들은 오직 미숙한 잎 모양을 지녔다. 작은 초목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초기에 나타난 박테리아로 인해 부식됐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대륙이 융기될 때, 북 아메리카는 그린랜드까지 뻗은 연결육지들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린랜드는, 그 얼음 층 밑에 이런 초기 육상 식물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240,000,000년 전에, 유럽과 남_북 아메리카 전역의 육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침강은 데보니아기의 홍수 중에서 맨 나중에 발생했고 가장 소규모였다. 북극해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고, 대부분은 북 아메리카로 흘러들어갔으며, 대서양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고, 남부 태평양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덮었다. 이번에 일어난 범람은 매우 서서히 발생했고, 퇴각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일어났다. 허드슨 강 서쪽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캐츠킬 산맥은, 북 아메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시기의 가장 큰 지질학적 기념비 가운데 하나다.

59:4.9 (679.2) 25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appearance of the fish family, the vertebr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all prehuman evolution.

59:4.10 (679.3) The arthropods, or crustaceans, were the ancestors of the first vertebrates. The forerunners of the fish family were two modified arthropod ancestors; one had a long body connecting a head and tail, while the other was a backboneless, jawless prefish. But these preliminary types were quickly destroyed when the fishes, the first vertebrates of the animal world, made their sudden appearance from the north.

59:4.11 (679.4) Many of the largest true fish belong to this age, some of the teeth-bearing varieties being twenty-five to thirty feet long; the present-day sharks are the survivors of these ancient fishes. The lung and armored fishes reached their evolutionary apex, and before this epoch had ended, fishes had adapted to both fresh and salt waters.

59:4.12 (679.5) Veritable bone beds of fish teeth and skeletons may be found in the deposits laid down toward the close of this period, and rich fossil beds are situated along the coast of California since many sheltered bays of the Pacific Ocean extended into the land of that region.

59:4.13 (679.6) The earth was being rapidly overrun by the new orders of land vegetation. Heretofore few plants grew on land except about the water's edge. Now, and suddenly, the prolific fern family appeared and quickly spread over the face of the rapidly rising land in all parts of the world. Tree types, two feet thick and forty feet high, soon developed; later on, leaves evolved, but these early varieties had only rudimentary foliage. There were many smaller plants, but their fossils are not found since they were usually destroyed by the still earlier appearing bacteria.

59:4.14 (679.7) As the land rose, North America became connected with Europe by land bridges extending to Greenland. And today Greenland holds the remains of these early land plants beneath its mantle of ice.

59:4.15 (679.8) 240,000,000 years ago the land over parts of both Europe and North and South America began to sink. This subsidence marked the appearance of the last and least extensive of the Devonian floods. The arctic seas again moved southward over much of North America, the Atlantic inundated a large part of Europe and western Asia, while the southern Pacific covered most of India. This inundation was slow in appearing and equally slow in retreating. The Catskill Mountains along the west bank of the Hudson River are one of the largest geologic monuments of this epoch to be found on the surface of North America.

2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계속 퇴각했다. 북 아메리카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고, 거대한 화산 활동이 세인트 로렌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몬트리올에 있는 로알 산은 이런 화산 가운데 하나가 침식되어 목 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다. 이 시기 전체의 퇴적층은 북 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 잘 나타나 있으며, 거기에는 서스케하나강이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런 연속적인 지층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했고, 그 층의 두께는 13,000피트를 넘는다.

대륙들의 융기가 계속됐고, 대기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됐다. 지구는 100피트 높이에 달하는 양치류 식물의 광활한 숲과, 그 당시의 독특한 나무들로 뒤덮였고, 숲은 고요했으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는데, 그런 나무에는 잎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긴 기간의 해양_생명체 진화 기간, 즉 어류 시대가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의 세계 역사는 거의 5,000만 년에 달했으며; 너희 연구진에게는 **데보니아기**로 알려져 있다.

5. 외피_변화 단계 양치류_삼림의 석탄기 개구리 시대

앞선 기간에 물고기의 출현이 해양_생명체 진화의 정점을 이뤘다. 이 시점부터, 육상 생명체의 진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은, 첫 육상 동물의 출현을 위한 거의 이상적인 무대가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22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한 대륙 지역 대부분이 물위로 올라왔다. 육지는 식물로 풍부하게 뒤덮였으며; 이 시기는 정말로 양치류 시대였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었지만 농도는 줄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북 아메리카의 중앙 부분이 침수됐고, 두 개의 거대한 내륙해가 조성됐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지대들은 현재의 해변 바로 바깥에 있었다. 이윽고 이 두 바다가 합쳐졌고, 서로 달랐던 생명체 형태들이 섞이게 됐으며, 이런 해양 동물군(動物群)의 결합은, 신속하고 세계적인 쇠퇴가 해양 생명에게 시작되게 했으며, 이어서 육상_생명체 기간이 열리도록 했다.

210,000,000년 전에, 따뜻한 온도의 북극 바닷물이 대부분의 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덮었다. 남극 지방의 물은 남 아메리카와 오스트리아를 침수시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높이 솟았다.

59:4.16 (679.9) 230,000,000 years ago the seas were continuing their retreat. Much of North America was above water, and great volcanic activity occurred in the St. Lawrence region. Mount Royal, at Montreal, is the eroded neck of one of these volcanoes. The deposits of this entire epoch are well shown in the Appalachian Mountains of North America where the Susquehanna River has cut a valley exposing these successive layers, which attained a thickness of over 13,000 feet.

59:4.17 (680.1) The elevation of the continents proceeded, and the atmosphere was becoming enriched with oxygen. The earth was overspread by vast forests of ferns one hundred feet high and by the peculiar trees of those days, silent forests; not a sound was heard, not even the rustle of a leaf, for such trees had no leaves.

59:4.18 (680.2) And thus drew to a close one of the longest periods of marine-life evolution, the age of fishes. This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lasted almost fifty million years; it has become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Devonian.

5. THE CRUSTAL-SHIFTING STAGE THE FERN-FOREST CARBONIFEROUS PERIOD THE AGE OF FROGS

59:5.1 (680.3) The appearance of fish during the preceding period marks the apex of marine-life evolution. From this point onward the evolution of land lif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is period opens with the stage almost ideally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first land animals.

59:5.2 (680.4) 220,000,000 years ago many of the continental land areas, including most of North America, were above water. The land was overrun by luxurious vegetation; this was indeed the age of ferns. Carbon dioxide was still present in the atmosphere but in lessening degree.

59:5.3 (680.5) Shortly thereafter the central portion of North America was inundated, creating two great inland seas. Both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al highlands were situated just beyond the present shore lines. These two seas presently united, commingling their different forms of life, and the union of these marine fauna marked the beginning of the rapid and world-wide decline in marine life and the opening of the subsequent land-life period.

59:5.4 (680.6) 210,000,000 years ago the warm-water arctic seas covered most of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south polar waters inundated South America and Australia, while both Africa and Asia were highly elevated.

바다가 가장 높아졌을 때, 새로운 진화 발전이 갑자기 이뤄졌다. 최초의 육상 동물이 돌연히 나타났다. 그것 중에는 땅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양서류는 절지동물에서 발달된 것이고, 절지동물의 부레가 허파로 진화했다.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에서 육상 달팽이, 전갈, 및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 오늘날의 개구리는 여전히 물속에 알을 낳고, 새끼 때에는 작은 물고기처럼, 올챙이로 살아간다. 이 기간은 **개구리 시대**로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직후에,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메뚜기와 함께 곤충들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곧 전 세계의 대륙에 퍼졌다. 잠자리는 폭이 30인치나 됐다. 1,000여 종에 이르는 바퀴벌레가 생겼고, 어떤 것은 4인치 길이까지 자랐다.

두 가지의 극피동물이 특히 잘 발달했고, 그것들은 실제로 이 시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화석이다. 조개를 먹는 큰 상어 역시 매우 잘 진화했으며, 500만 년 이상 바다를 지배했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했으며; 해양 생명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민물고기가 나타났고, 삼엽충은 거의 소멸됐다. 산호초가 줄었고, 대부분의 석회암은 바다나리로 말미암아 조성됐다. 질 좋은 건축용 석회암은 이 시기 동안에 퇴적된 것이다.

많은 내륙해의 물은, 석회를 비롯한 다른 광물질이 너무 많이 축적돼서, 여러 해양 종족의 진화와 발전을 크게 방해했다. 결국에는 암석이 광대하게 퇴적된 결과로 바다가 맑아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암석에 아연과 납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이 초기 **석탄기**의 퇴적층들은, 500내지 2,000 피트 두께이고, 사암, 이판암, 및 석회암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많은 자갈과 하구{河口} 퇴적물과 함께, 육상 및 해상 동식물의 화석이 들어 있다.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석탄이 비교적 오래된 이 지층에서 발견된다.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이 퇴적층은, **북 아메리카**에 쌓여 있는 지층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가 융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잠시 중단되고, 바닷물이 전에 들어와 있던 지역의 반 정도를 덮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의 침수였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곧 물위로 올라왔다. **남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전히 **유럽**과 연결돼 있었다.

이 시기에 **보주**, **흑림**{黑林}, 및 **우랄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대에 형성된 다른 산맥의

59:5.5 (680.7) When the seas were at their height, a new evolutionary development *suddenly* occurred. Abruptly, the first of the land animals appeared. There were numerous species of these animals that were able to live on land or in water. These air-breathing amphibians developed from the arthropods, whose swim bladders had evolved into lungs.

59:5.6 (680.8) From the briny waters of the seas there crawled out upon the land snails, scorpions, and frogs. Today frogs still lay their eggs in water, and their young first exist as little fishes, tadpoles. This period could well be known as the *age of frogs*.

59:5.7 (680.9) Very soon thereafter the insects first appeared and, together with spiders, scorpions, cockroaches, crickets, and locusts, soon overspread the continents of the world. Dragon flies measured thirty inches across. One thousand species of cockroaches developed, and some grew to be four inches long.

59:5.8 (680.10) Two groups of echinoderms became especially well developed, and they are in reality the guide fossils of this epoch. The large shell-feeding sharks were also highly evolved, and for more than five million years they dominated the oceans. The climate was still mild and equable; the marine life was little changed. Fresh-water fish were developing and the trilobites were nearing extinction. Corals were scarce, and much of the limestone was being made by the crinoids. The finer building limestones were laid down during this epoch.

59:5.9 (681.1) The waters of many of the inland seas were so heavily charged with lime and other minerals as greatly to interfere with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many marine species. Eventually the seas cleared up as the result of an extensive stone deposit, in some places containing zinc and lead.

59:5.10 (681.2) The deposits of this early Carboniferous age are from 500 to 2,000 feet thick, consisting of sandstone, shale, and limestone. The oldest strata yield the fossils of both land and marine animals and plants, along with much gravel and basin sediments. Little workable coal is found in these older strata. These depositions throughout Europe are very similar to those laid down over North America.

59:5.11 (681.3) Toward the close of this epoch the land of North America began to rise. There was a short interruption, and the sea returned to cover about half of its previous beds. This was a short inundation, and most of the land was soon well above water. South America was still connected with Europe by way of Africa.

59:5.12 (681.4) This epoch witnessed the beginning of the Vosges, Black Forest, and Ural mountains. Stumps of other and older mountains are to be

흔적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

200,000,000년 전에, **석탄기**에서 정말로 활동적인 단계가 시작됐다. 이 시기보다 앞서서, 2,000만 년 동안에 전기{前期} 석탄 퇴적층이 형성됐지만, 이때부터는 더 광대한 석탄 형성 활동이 진행됐다. 실제적인 석탄_퇴적 시기의 길이는 2,500만 년 조금 넘는다.

해양 바닥의 활동 때문에 바다물 높이가 바뀔에 따라, 육지는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연안에 있는 늪지대들의 풍성한 초목과 관련해서, 이런 지각{地殼}의 불안정한 상태가--곧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광대한 석탄 퇴적층{堆積層}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 기간이 **석탄기**로 알려지는 원인이 됐다. 그리고 기후는 지구 전체가 온화했다.

석탄층은, 이관암, 암석, 및 역암 등과 번갈아가면서 형성돼 있다. 중부와 동부의 **미합중국**에 퍼져 있는 이런 석탄 지대는, 40피트 내지 50피트의 두께로 돼있다. 그러나 이 퇴적층들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육지가 융기되는 동안 물에 씻겨 나갔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들어있는 지층이 18,000피트 두께인 곳도 있다.

진흙 속에서 성장하던 나무의 뿌리가 현재의 석탄 지대 밑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 석탄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형성됐음을 나타낸다. 석탄은, 이와 같은 먼 옛날 연안에 있던, 늪지대와 습지에서 자라는 울창한 초목이 물의 보호 작용과 압력으로 인한 변형으로 남아있는 물질이다. 석탄층에는 가스나 석유를 포함한 경우가 종종 있다. 성장이 멈춘 식물의 잔여물인 토탄{土炭} 지대는,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갖게 될 때 석탄 유형으로 바뀐다. 무연탄은 다른 석탄보다 더 많은 압력과 열을 받을 때 생긴다.

여러 지층으로 형성된 **북 아메리카**의 석탄층은,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데, **일리노이**에서 열 개로부터, **펜실바니아**에서 20개, **알라바마**에서 35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7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물과 바닷물의 화석들이 석탄지대에서 발견된다.

이 시기 내내, **남 북 아메리카**의 산들이 활동적이었고, **안데스 산맥**과 원시 형태의 남부 **로키 산맥**이 융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높은 지대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우 침식되고 가라앉게 되어, 두 해양의 해안선은 대략 현재 위치까지 퇴각하게 됐다. 이 침수기간에 퇴적된 층은 평균 약 1,000피트 두께에 달한다.

19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석탄기 바다가, 현재의 **로키 산맥** 지역까지 서쪽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해

found all over Great Britain and Europe.

59:5.13 (681.5) 200,000,000 years ago the really active stages of the Carboniferous period began. For twenty million years prior to this time the earlier coal deposits were being laid down, but now the more extensive coal-formation activities were in process. The length of the actual coal-deposition epoch was a little over twenty-five million years.

59:5.14 (681.6) The land was periodically going up and down due to the shifting sea level occasioned by activities on the ocean bottoms. This crustal uneasiness — the settling and rising of the land — in connection with the prolific vegetation of the coastal swamps, contributed to the production of extensive coal deposits, which have caused this period to be known as the *Carboniferous*. And the climate was still mild the world over.

59:5.15 (681.7) The coal layers alternate with shale, stone, and conglomerate. These coal beds over central and eastern United States vary in thickness from forty to fifty feet. But many of these deposits were washed away during subsequent land elevations. In some part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coal-bearing strata are 18,000 feet in thickness.

59:5.16 (681.8) The presence of roots of trees as they grew in the clay underlying the present coal beds demonstrates that coal was formed exactly where it is now found. Coal is the water-preserved and pressure-modified remains of the rank vegetation growing in the bogs and on the swamp shores of this faraway age. Coal layers often hold both gas and oil. Peat beds, the remains of past vegetable growth, would be converted into a type of coal if subjected to proper pressure and heat. Anthracite has been subjected to more pressure and heat than other coal.

59:5.17 (681.9) In North America the layers of coal in the various beds, which indicate the number of times the land fell and rose, vary from ten in Illinois, twenty in Pennsylvania, thirty-five in Alabama, to seventy-five in Canada. Both fresh- and salt-water fossils are found in the coal beds.

59:5.18 (682.1) Throughout this epoch the mountains of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active, both the Andes and the southern ancestral Rocky Mountains rising. The great Atlantic and Pacific high coastal regions began to sink, eventually becoming so eroded and submerged that the coast lines of both oceans withdrew to approximately their present positions. The deposits of this inundation average about one thousand feet in thickness.

59:5.19 (682.2) 190,000,000 years ago witnessed a westward extension of the North American Carboniferous sea over the present Rocky

서 태평양으로 연결돼 있었다. 해안선 지역이 변동을 일으키는 이 시기 동안에 연안지대가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면서, **미국**과 **유럽** 전역에 석탄이 여러 층으로 계속 쌓였다.

180,000,000년 전에, 석탄기{石炭紀}가 끝나게 되며, 그동안 세계 전역에서--곧 **유럽**, **인도**, **중국**, **북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 석탄이 형성됐다. 석탄_형성기가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계곡 동쪽이 융기했고, 그 지역 대부분은 그 후로 계속 해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육지가_융기하는 기간은, **북 아메리카**, 즉 현재 **아팔라치아**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基點}이 됐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산이_형성되는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동부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그린랜드** 대륙을 통해서 연결돼 있었다.

육지가 융기되자, 그 전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성 기후가 변경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덜 온화하고 변화가 많은 대륙성 기후가 시작됐다.

이 시기의 식물은 씨를 맺었고, 바람이 이 씨를 멀리까지 넓게 퍼뜨릴 수 있었다. **석탄기**의 나무줄기는 보통 직경이 7피트 정도였으며, 125피트 높이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었다. 현대의 양치류는 아득히 먼 이 시대의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민물 유기체가 발달하는 시기였으며, 이전의 해양 생명체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질은 개구리 및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갑작스런** 출현이다. **석탄기**의 생명체 특색은 양치류 식물과 개구리다.

6. 기후의 과도기 단계 종자_식물기 생물학적 시 련기

이 기간은, 해양 생명체의 중추적인 진화 발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의 육상{陸上} 동물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가 시작되는 기점이다.

이 시기는 생명체의 거대한 퇴화기였다. 수천 종류의 해양 생명체가 사라졌고, 육지에는 아직 생명체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시련기였고, 육지 표면과 해양의 깊은 곳에서, 생명체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였다. 긴 해양_생명체 시대가 끝날 무렵에, 지구상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생명체가 있었다. 이런 변환기가 끝날 때에는, 500가지 미만만 살아남았다.

Mountain region, with an outlet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northern California. Coal continued to be laid down throughout the Americas and Europe, layer upon layer, as the coastlands rose and fell during these ages of seashore oscillations.

59:5.20 (682.3) 180,000,000 years ago brought the close of the Carboniferous period, during which coal had been formed all over the world — in Europe, India, China, North Africa, and the Americas. At the close of the coal-formation period North America east of the Mississippi valley rose, and most of this section has ever since remained above the sea. This land-elevation period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mountains of North America, both in the Appalachian regions and in the west. Volcanoes were active in Alaska and California and in the mountain-forming regions of Europe and Asia. Eastern America and western Europe were connected by the continent of Greenland.

59:5.21 (682.4) Land elevation began to modify the marine climate of the preceding ages and to substitute therefor the beginnings of the less mild and more variable continental climate.

59:5.22 (682.5) The plants of these times were spore bearing, and the wind was able to spread them far and wide. The trunks of the Carboniferous trees were commonly seven feet in diameter and often one hundred and twenty-five feet high. The modern ferns are truly relics of these bygone ages.

59:5.23 (682.6) In general, these were the epochs of development for fresh-water organisms; little change occurred in the previous marine life. But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frogs and their many cousins. The life features of the coal age were ferns and frogs.

6. THE CLIMATIC TRANSITION STAGE THE SEED-PLANT PERIOD THE AGE OF BIOLOGIC TRIBULATION

59:6.1 (682.7) This period marks the end of pivotal evolutionary development in marine life and the opening of the transition period leading to the subsequent ages of land animals.

59:6.2 (682.8) This age was one of great life impoverishment. Thousands of marine species perished, and life was hardly yet established on land. This was a time of biologic tribulation, the age when life nearly van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from the depths of the oceans. Toward the close of the long marine-life era there wer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species of living things on earth. At the close of this period of

새로운 이 시대의 특징은, 지각의 냉각이나 오랫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기 때문보다는, 통상적이고 선재(先在)하는 영향들이--곧 바다들의 축소와, 거대한 땅 덩어리들의 증대되는 용기가--특이하게 배합됐기 때문이었다. 이전(以前) 시대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는 사라졌고, 더 사나운 대륙성 유형의 기후가 빨리 발달되고 있었다.

170,000,000년 전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와 적응 현상이 지구 표면 전체에서 발생했다. 해양 지대가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세계 전역에서 솟아 올랐다. 독립된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북 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왔으며; 서부 지역은 서서히 솟아올랐다. 대륙들은 크고 작은 바다 호수와 수많은 내륙해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좁은 해협으로 대양과 연결돼 있었다. 이런 변환기에 형성된 지층은 1,000내지 7,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이렇게 육지가 융기하는 기간에, 지각이 광범한 지역에서 접혀졌다. **남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오랫동안 연결하고 있었던 대륙을 포함해서, 어떤 연결육지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이 시기는 대륙이 융기되는 시대였다.

전 세계의 내륙에 있는 호수와 바다들의 물이 점차 마르게 됐다. 독립된 산과 국부적인 빙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남반구**에서 심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얼음 형성 현상으로 인한 빙하 퇴적층이, 후기에 형성된 상부의 석탄 퇴적층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두 가지 새로운 기후 요소가--곧 빙하 작용과 건조 현상이--나타났다. 지구상의 다수의 높은 지역이 건조한 불모지가 됐다.

기후가 변화하는 이 시기 내내, 육상 식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씨 맺는 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이 식물은, 나중에 증가하는 육상동물 생명체에게 더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다. 곤충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됐다. 겨울과 건조기에 일시적으로 생존 환경이 정지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면기**(休眠期)가 진화로 발생했다.

육상 동물 중에서 개구리는 전반기에 최고도로 번성했다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개구리가 살아남은 것은 아득히 멀고 극도로 어려운 이 시절에, 메마른 웅덩이와 연못 속에서도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구리가 줄어드는 동안,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땅 덩어리들이 아직 연결돼 있어서, 파충류 이전(以前) 단계의, 공기로 숨 쉬는 이 피조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때 대기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숨을 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파충류 이전 단계의 개

transition less than five hundred had survived.

59:6.3 (682.9) The peculiarities of this new period were not due so much to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or to the long absence of volcanic action as to an unusual combination of commonplace and pre-existing influences — restrictions of the seas and increasing elevation of enormous land masses. The mild marine climate of former times was disappearing, and the harsher continental type of weather was fast developing.

59:6.4 (683.1) 170,000,000 years ago great evolutionary changes and adjustments were taking place over the entire face of the earth. Land was rising all over the world as the ocean beds were sinking. Isolated mountain ridges appeared.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was high above the sea; the west was slowly rising. The continents were covered by great and small salt lakes and numerous inland seas which were connected with the oceans by narrow straits. The strata of this transition period vary in thickness from 1,000 to 7,000 feet.

59:6.5 (683.2) The earth's crust folded extensively during these land elevations. This was a time of continental emergence except for the disappearance of certain land bridges, including the continents which had so long connected South America with Africa and North America with Europe.

59:6.6 (683.3) Gradually the inland lakes and seas were drying up all over the world. Isolated mountain and regional glaciers began to appear, especially over the Southern Hemisphere, and in many regions the glacial deposit of these local ice formations may be found even among some of the upper and later coal deposits. Two new climatic factors appeared — glaciation and aridity. Many of the earth's higher regions had become arid and barren.

59:6.7 (683.4) Throughout these times of climatic change, great variations also occurred in the land plants. The seed plants first appeared, and they afforded a better food supply for the subsequently increased land-animal life. The insects underwent a radical change. The resting stages evolved to meet the demands of suspended animation during winter and drought.

59:6.8 (683.5) Among the land animals the frogs reached their climax in the preceding age and rapidly declined, but they survived because they could long live even in the drying-up pools and ponds of these far-distant and extremely trying times. During this declining frog age, in Africa, the first step in the evolution of the frog into the reptile occurred. And since the land masses were still connected, this prereptilian creature, an air breather, spread over all the world. By this time the atmosphere had been so changed that it served

우리가 도착된 직후에, **북 아메리카**는 **유럽**, **아시아**, 및 **남 아메리카**로부터 분리되어, 일시적인 고립 상태에 있었다.

해양의 물이 점점 차가워졌으므로, 해양 생명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시대의 해양 동물은 세 지역의 적당한 은신처로 잠시 피난해 있었는데: 현재의 **멕시코 만** 지역, **인도의 갠지스 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시칠리아 만**이었다. 그리고 이런 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해양 종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났으며, 나중에는 바다를 가득 채우게 됐다.

160,000,000년 전에, 육상 동물 생명체를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식물이 육지 대부분을 뒤덮었으며, 기후는 동물이 호흡하기에 이상적인 상태가 됐다. 그 후에 해양 생명체가 축소되는 기간이 끝나게 됐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종류를 제외한 모든 형태가 전부 사라지는 생물학적 수난의 시험 기간이 끝나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행성의 진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되고 매우 분화{分化}된 생명체의 시조{始祖} 역할을 했다.

이런 생물학적 수난기가 끝나는 부분이, 너희의 학자들에게는 **페름기**로 알려져 있고, 행성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년이라는 긴 기간의 **고생대**가 종료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유란시아에서 생명체의 거대한 해양 종묘원{種苗園}이 그 목적에 잘 부합했다. 육지가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부적합했던, 비교적 고등의 육상 동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함유되기 이전의 오랜 시절 동안, 바다가 그 영역에 있는 초기 생명체의 모체{母體} 역할을 했고 양육했다. 둘째 단계의 진화가 육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바다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됐다.

[**유란시아**에 배정된 원래 단체의 구성원인,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admirably to support animal respiration. It was soon after the arrival of these praeptilian frogs that North America was temporarily isolated, cut off from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59:6.9 (683.6) The gradual cooling of the ocean waters contributed much to the destruction of oceanic life. The marine animals of those ages took temporary refuge in three favorable retreats: the present Gulf of Mexico region, the Ganges Bay of India, and the Sicilian Bay of the Mediterranean basin. And it was from these three regions that the new marine species, born to adversity, later went forth to replenish the seas.

59:6.10 (683.7) 16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largely covered with vegetation adapted to support land-animal life, and the atmosphere had become ideal for animal respiration. Thus ends the period of marine-life curtailment and those testing times of biologic adversity which eliminated all forms of life except such as had survival value, and which were therefore entitled to function as the ancestors of the more rapidly developing and highly differentiated life of the ensuing ages of planetary evolution.

59:6.11 (684.1) The ending of this period of biologic tribulation, known to your students as the *Permian*, also marks the end of the long *Paleozoic* era, which covers one quarter of the planetary history, two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59:6.12 (684.2) The vast oceanic nursery of life on Urantia has served its purpose. During the long ages when the land was unsuited to support life, before the atmosphere contained sufficient oxygen to sustain the higher land animals, the sea mothered and nurtured the early life of the realm. Now the biologic importance of the sea progressively diminishes as the second stage of evolution begins to unfold on the land.

59:6.13 (684.3) [Present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one of the original corps assigned to Urantia.]

제60편. 초기 육상_생명체 시대의 유란시아

⇨ 059

유란시아 책

06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0편

초기 육상_생명체 시대의 유란시아

섹션

소개

1. 초기 파충류 시대
2. 후기 파충류 시대
3. 백악기꽃_식물 시대 조류 시대
4. 백악기가 끝남

소개

해양 생명체만이 독점하던 시절은 끝났다. 땅이 융기되고, 지각{地殼}과 해양이 냉각되고, 바다면적이 줄면서 그에 따라 깊어진 것은, 북반구에 있는 땅이 크게 솟아오른 것과 아울러, 적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지역에서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도록, 모두 함께 크게 작용했다.

앞에 있던 시절이 끝날 무렵은 개구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육상 척추동물의 선조인 이 개구리는 더 이상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극소수의 유형들만이, 앞에 있던 생물학적 고난의 혹독한 시련기를 견뎌냈다. 씨앗을 맺는 식물조차 거의 사라졌다.

1. 초기 파충류 시대

이 기간에 침전된 퇴적층은 대개, 역암, 이판암, 및 사암층으로 이뤄졌다. **아메리카**와 **유럽**에 퍼져 있는 이 퇴적층에 포함된 석고층과 적토층은, 이 두 대륙의 기후가 매우 건조했음을 나타낸다. 이런 건조 지역은, 주변에 있는 높은 지대에 주기적으로 몰아치는 맹렬한 폭풍우로 인해, 거대한

PAPER 60

URANTIA DURING THE EARLY LAND-LIFE ER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arly Reptilian Age
2. The Later Reptilian Age
3. The Cretaceous Stage
The Flowering-Plant Period
The Age of Birds
4. The End of the Chalk Period

INTRODUCTION

60:0.1 (685.1) THE era of exclusive marine life has ended. Land elevation, cooling crust and cooling oceans, sea restriction and consequent deepening, together with a great increase of land in northern latitudes, all conspired greatly to change the world's climate in all regions far removed from the equatorial zone.

60:0.2 (685.2) The closing epochs of the preceding era were indeed the age of frogs, but these ancestors of the land vertebrates were no longer dominant, having survived in greatly reduced numbers. Very few types outlived the rigorous trials of the preceding period of biologic tribulation. Even the spore-bearing plants were nearly extinct.

1. THE EARLY REPTILIAN AGE

60:1.1 (685.3) The erosion deposits of this period were mostly conglomerates, shale, and sandstone. The gypsum and red layers throughout these sedimentations over both America and Europe indicate that the climate of these continents was arid. These arid districts were

침식작용을 겪었다.

이 지층들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사암(砂巖)층에서는 육상 파충류의 수많은 발자국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기간에 1,000피트 두께로 형성된 많은 지역의 적색 사암층에는 화석이 들어 있지 않다. 육상 동물 생명체가 계속 살아 있던 곳은,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들뿐이었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3,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다양하며, **태평양** 연안의 어떤 곳에서는 18,000피트에 이르기도 한다. 나중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 지층에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허드슨강 서쪽 암벽(팔리세이즈)**은 이런 **트라이아스기** 지층에 용암이 분출돼 생성된 현무암으로 인해 형성됐다. 화산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광범하게 있었다.

유럽 전역, 특히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 기간에 형성된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적색 사암층**은 이 시기에 형성됐다.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 남부 **알프스**에 석회암이 퇴적됐고, 오늘날 백운석 석회암으로 독특하게 이뤄진 벽과 봉우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둥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 전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카탈라** 대리석은 그런 변경된 석회암에서 나온다. **남 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대륙이 가라앉아 있었고, 따라서 앞에 있는 시기와 뒤에 있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민물 또는 해양 퇴적층만 발달했기 때문이다.

150,000,000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초기의 육상 생명체 기간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해양 생명체 기간이 힘들고 부적합한 상태로 끝나던 때보다는 나았다.

이 시절이 시작될 때, **북 아메리카**의 동부와 중부, **남 아메리카**의 북반부(北半部), **유럽**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역이 물 위로 상당히 솟아 있었다. 처음에는 **북 아메리카**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지만, **베링해협**의 연결육지가 다시 올라와서, 곧 **아시아** 대륙과 연결됐다.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과 평행으로, **북 아메리카**에서 거대한 해구(海溝)가 형성됐다. 동부 **코네티컷**에서 거대한 단층 현상이 있었고, 한 쪽 면은 결국 2마일 가량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북 아메리카** 해구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침식 작용으로 생긴 퇴적물로 채워졌고, 또한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웅덩이는 민물과 바닷물이 들어 있는 호수가 됐다. 나중에는, 함몰됐다가 다시 채워진 이 땅들이, 그 속에서 발생한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크게 높아졌다. 여러 곳에 있는 석화(石化)된 삼림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대륙이 침수돼 있는 동안 대개 물 위에 올라와 있었던 **태평양** 연안이, 지금은 **태평양** 바다가 됐지만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큰 섬과, **캘리**

subjected to great erosion from the violent and periodic cloudbursts on the surrounding highlands.

60:1.2 (685.4) Few fossils are to be found in these layers, but numerous sandstone footprints of the land reptiles may be observed. In many regions the one thousand feet of red sandstone deposit of this period contains no fossils. The life of land animals was continuous only in certain parts of Africa.

60:1.3 (685.5) These deposits vary in thickness from 3,000 to 10,000 feet, even being 18,000 on the Pacific coast. Lava was later forced in between many of these layers. The Palisades of the Hudson River were formed by the extrusion of basalt lava between these Triassic strata. Volcanic action was extens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60:1.4 (685.6) Over Europe, especially Germany and Russia, may be found deposits of this period. In England the New Red Sandstone belongs to this epoch. Limestone was laid down in the southern Alps as the result of a sea invasion and may now be seen as the peculiar dolomite limestone walls, peaks, and pillars of those regions. This layer is to be found all over Africa and Australia. The Carrara marble comes from such modified limestone. Nothing of this period will be found in the southern regions of South America as that part of the continent remained down and hence presents only a water or marine deposit continuous with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pochs.

60:1.5 (686.1) 150,000,000 years ago the early land-life periods of the world's history began. Life, in general, did not fare well but did better than at the strenuous and hostile close of the marine-life era.

60:1.6 (686.2) As this era opens, the eastern and central parts of North America, the northern half of South America, most of Europe, and all of Asia are well above water. North America for the first time is geographically isolated, but not for long a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soon again emerges, connecting the continent with Asia.

60:1.7 (686.3) Great troughs developed in North America, paralleling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The great eastern-Connecticut fault appeared, one side eventually sinking two miles. Many of these North American troughs were later filled with erosion deposits, as also were many of the basins of the fresh- and salt-water lakes of the mountain regions. Later on, these filled land depressions were greatly elevated by lava flows which occurred underground. The petrified forests of many regions belong to this epoch.

60:1.8 (686.4) The Pacific coast, usually above water during the continental submergences, went down excepting the southern part of California and a

포니아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강했다. 고대의 이 **캘리포니아** 바다에는 해양 생명체가 풍성하게 서식했으며, 동쪽으로 확장되어 중서부 지역의 옛 바다 웅덩이와 연결됐다.

140,000,000년 전에, 앞에 있던 시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발달했던 파충류 이전의 두 가지 선조로부터 오직 미량(微量)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파충류가 충분히 성장된 형태로 출현했다. 이것들은 급속히 발전했고, 악어류와 비늘 있는 파충류 그리고 결국 해룡(海龍)과 날개가 달린 파충류가 생겨났다. 과도기에 있었던 그것들의 선조는 신속히 사라졌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이 파충류 공룡들이,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됐다. 이것들은 알을 낳았고, 녀가 작은 것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었으며, 나중에 40톤에 이르게 된 거대한 몸통을 통제하는 녀가, 겨우 1파운드 미만이었다. 그러나 초기 파충류는 비교적 작았고, 육식 동물이었으며, 켄거루처럼 뒷다리로 걸었다. 이것들의 뼈는 새처럼 속이 비었고, 나중에 발달된 뒷다리 발가락은 세 개 뿐이었는데, 이것들의 발자국 화석 가운데 다수를 거대한 새 발자국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 후에 초식성(草食性) 공룡이 진화돼서 나타났다. 이것들은 네 다리로 걸었고, 이 무리 중에서 한 종류가 방호 갑옷 공룡으로 발전했다.

수백만 년 후에 첫 포유류 동물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태반(胎盤)을 지니지 않았고, 기능이 곧 저하됐으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은 포유류 동물 유형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였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해양 생명체는 빈약했지만, 바닷물이 새로 유입됨으로 인해, 즉 얕은 물로 형성된 해안선이 다시 광대하게 조성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량됐다. 물이 얕은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더 많았으므로, 많은 화석 지대가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 너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히말라야**와 **시베리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 뿐 아니라, **인도**와 남부 **태평양** 해분(海盆)을 조사해 보기 바란다. 해양 생명체의 현저한 특색은 아름다운 암모나이트 껍데의 출현이었으며, 그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1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시베리아**와 **북 아메리카**는 **베링해협**의 연결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는 독특한 해양 생명체가 많이 있었고, 1,000여 종 이상의 암모나이트들이 비교적 높은 유형의 두족류 동물로부터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의 생명체 변화는 과도기적이고 점진적이었음에도, 정말로 혁신적이었다.

이 기간은 2,500만 년 동안 계속됐고, **트라이아스기**라고 알려져 있다.

large island which then existed in what is now the Pacific Ocean. This ancient California sea was rich in marine life and extended eastward to connect with the old sea basin of the midwestern region.

60:1.9 (686.5) 140,000,000 years ago, suddenly and with only the hint of the two prereptilian ancestors that developed in Africa during the preceding epoch, the reptiles appeared in full-fledged form. They developed rapidly, soon yielding crocodiles, scaled reptiles, and eventually both sea serpents and flying reptiles. Their transition ancestors speedily disappeared.

60:1.10 (686.6) These rapidly evolving reptilian dinosaurs soon became the monarchs of this age. They were egg layers and are distinguished from all animals by their small brains, having brains weighing less than one pound to control bodies later weighing as much as forty tons. But earlier reptiles were smaller, carnivorous, and walked kangaroolike on their hind legs. They had hollow avian bones and subsequently developed only three toes on their hind feet, and many of their fossil footprints have been mistaken for those of giant birds. Later on, the herbivorous dinosaurs evolved. They walked on all fours, and one branch of this group developed a protective armor.

60:1.11 (686.7) Several million years later the first mammals appeared. They were nonplacental and proved a speedy failure; none survived. This was an experimental effort to improve mammalian types, but it did not succeed on Urantia.

60:1.12 (686.8) The marine life of this period was meager but improved rapidly with the new invasion of the sea, which again produced extensive coast lines of shallow waters. Since there was more shallow water around Europe and Asia, the richest fossil beds are to be found about these continents. Today, if you would study the life of this age, examine the Himalayan, Siberian, and Mediterranean regions, as well as India and the islands of the southern Pacific basin. A prominent feature of the marine life was the presence of hosts of the beautiful ammonites, whose fossil remain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60:1.13 (686.9) 130,000,000 years ago the seas had changed very little. Siberia and North America were connected by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A rich and unique marine life appeared on the Californian Pacific coast, where over one thousand species of ammonites developed from the higher types of cephalopods. The life changes of this period were indeed revolutionary notwithstanding that they were transitional and gradual.

60:1.14 (687.1) This period extended over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Triassic*.

2. 후기 파충류 시대

120,000,000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 이 기간에 일어난 큰 사건은 공룡의 진화와 쇠퇴 현상이었다. 육상 동물 생명체는 그 크기에서 최고로 발달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표면에서 사실상 멸종됐다. 하나의 종류에서 진화된 모든 종류의 공룡은, 길이가 2피트도 안 되는 작은 것부터, 육식을 하지 않는 75피트 길이의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기로 진화했고, 그 후로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그렇게 큰 것은 나타난 적이 없다.

공룡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북 아메리카 서부에서 나타났다. 거대한 이 파충류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하고, 북 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 전체에 걸쳐 있는 로키산맥 지역 전체, 서부 유럽, 남아프리카, 및 인도 등지에 묻혀 있다.

거대한 이 피조물은 체구가 점점 커지면서 활동력과 힘이 줄어들게 됐으며;반면에 이것들은 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게 됐고, 온 땅이 그것들로 뒤덮이게 되자, 완전히 굶어죽게 됐고 멸종됐다--이것들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사고력이 없었다.

이 무렵에, 오랫동안 솟아 있었던 북 아메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은, 고도가 낮아지고 대서양으로 씻겨 들어가서, 해안선은 현재보다 수백 마일 이상 밖으로 뻗어 있었다. 대륙의 서쪽 지역은 여전히 융기돼 있었지만, 이 지역들도 나중에는 북쪽 바다와 태평양의 침입을 받았는데, 다크다의 검은 언덕들 지역까지 동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 시기는 많은 내륙 호수가 특징인 민물 시대였으며, 콜로라도와 몬타나 그리고 와이오밍에 있는 소위 모리스 지대(地帶)의 풍부한 민물 화석이 잘 보여준다. 뒤섞인 이 바닷물 및 민물 퇴적층 두께는 2천 내지 5천 피트에 이르지만;이 지층에는 석회암이 거의 없다.

북 아메리카 지역으로 멀리까지 확장됐던 바로 그 극지방 바다가, 남 아메리카 전체도 마찬가지로 뒤덮었고, 다만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안데스 산맥은 예외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지만, 물의 침입은 유럽에서 가장 심했다. 아름다운 석판 예술에 사용되는 남부 독일의 암석층은 이 침수기에 퇴적됐으며, 그 지층에는 고대에 있었던 곤충들의 섬세한 날개 등의 화석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

이 시대의 식물 분포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동일했다. 양치류는 현상유지 하는 정도였던 반면, 침엽수와 소나무는 점점 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발전했다. 일부 석탄층이 지중해 북

2. THE LATER REPTILIAN AGE

60:2.1 (687.2) 120,000,000 years ago a new phase of the reptilian age began. The great event of this period was the evolution and decline of the dinosaurs. Land-animal life reached its greatest development, in point of size, and had virtually per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y the end of this age. The dinosaurs evolved in all sizes from a species less than two feet long up to the huge noncarnivorous dinosaurs, seventy-five feet long, that have never since been equaled in bulk by any living creature.

60:2.2 (687.3) The largest of the dinosaurs originat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se monstrous reptiles are buried throughout the Rocky Mountain regions, along the whole of the Atlantic coast of North America, over western Europe, South Africa, and India, but not in Australia.

60:2.3 (687.4) These massive creatures became less active and strong as they grew larger and larger; but they required such an enormous amount of food and the land was so overrun by them that they literally starved to death and became extinct — they lacked the intelligence to cope with the situation.

60:2.4 (687.5) By this time most of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which had long been elevated, had been leveled down and washed into the Atlantic Ocean so that the coast extended several hundred miles farther out than now. The western part of the continent was still up, but even these regions were later invaded by both the northern sea and the Pacific, which extended eastward to the Dakota Black Hills region.

60:2.5 (687.6) This was a fresh-water age characterized by many inland lakes, as is shown by the abundant fresh-water fossils of the so-called Morrison beds of Colorado, Montana, and Wyoming. The thickness of these combined salt- and fresh-water deposits varies from 2,000 to 5,000 feet; but very little limestone is present in these layers.

60:2.6 (687.7) The same polar sea that extended so far down over North America likewise covered all of South America except the soon appearing Andes Mountains. Most of China and Russia was inundated, but the water invasion was greatest in Europe. It was during this submergence that the beautiful lithographic stone of southern Germany was laid down, those strata in which fossils, such as the most delicate wings of olden insects, are preserved as of but yesterday.

60:2.7 (687.8) The flora of this age was much like that of the preceding. Ferns persisted, while conifers and pines became more and more like the present-day varieties. Some coal was still being

쪽 연안을 따라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었다.

바다가 다시 넓어졌으므로 기후도 개선됐다. 산호가 유럽 지역의 물속에 퍼졌는데, 기후가 아직 온화하고 일정했음을 입증하지만, 서서히 차가워지는 극지방의 바다들에서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해양 생명체는 크게 개량되고 발전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에 있는 물 속에서 그랬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잠시 동안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지만, 암모나이트가 해양의 무척추 생명체보다 우위를 차지했고, 평균 크기는 3내지 4인치였으며, 어떤 종류는 직경이 8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곳에든지 해면체 동물이 살았고, 오징어와 굴 종류들이 계속 진화했다.

110,000,000년 전에, 잠재돼 있던 해양 생명체가 계속 나타났다. 성체는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돌연변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게와 가재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유형의 갑각류가 완성됐다. 물고기 과(科)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해서, 칠갑상어 유형이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사나운 해룡(海龍)은 육상 파충류에서 유래했고, 온 바다에 계속 창궐해 있었으며, 이것들로 인해 물고기 과 전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때는 계속하여 뚜렷이 공룡시대였다. 공룡들이 육지에 너무 많이 번식해서, 두 종류는 바다가 밀려들어오기 이전의 기간에 생존을 위해 물을 택했다. 이런 해룡은 진화의 퇴보를 의미했다. 새로운 종류들이 발전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통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또 어떤 종류들은 옛날로 퇴보해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두 유형의 파충류가 육지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은 더욱 커져서 매우 둔하게 됐고 결국 멸종됐는데, 그것들의 거대한 체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대한 어룡(魚龍)이, 어떤 경우에는 50피트의 길이까지 자랐고, 대부분 35피트의 길이에 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너의 무게는 2온스 미만에 불과했다. 악어와 비슷한 해양 동물 역시, 육상의 파충류 유형에서 퇴보된 것이었지만, 해룡의 경우와 달리, 알을 낳기 위해 항상 육지로 돌아왔다.

두 종류의 공룡이 생존을 위한 헛된 시도의 일환으로 물속으로 옮겨간 직후에,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두 유형이 공중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 익룡(翼龍)은,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순수한 조류(鳥類)의 선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졌고, 나는 듯이 달리는 공룡으로부터 진화했으며, 날개는 박쥐와 같은 형태로써 20내지 25피트까지 펼 수 있었다. 고대의 이런 날개 달린 파충류는 10피트 길이까지 자랐고, 오늘날의 뱀처럼 분리될 수 있는 턱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날개 달린 이 파충류는 한동안 잘 생존했지만,

formed along the northern Mediterranean shores.

60:2.8 (687.9) The return of the seas improved the weather. Corals spread to European waters, testifying that the climate was still mild and even, but they never again appeared in the slowly cooling polar seas. The marine life of these times improved and developed greatly, especially in European waters. Both corals and crinoids temporarily appeared in larger numbers than heretofore, but the ammonites dominated the invertebrate life of the oceans, their average size ranging from three to four inches, though one species attained a diameter of eight feet. Sponges were everywhere, and both cuttlefish and oysters continued to evolve.

60:2.9 (688.1) 110,000,000 years ago the potentials of marine life were continuing to unfold. The sea urchin was one of the outstanding mutations of this epoch. Crabs, lobsters, and the modern types of crustaceans matured. Marked changes occurred in the fish family, a sturgeon type first appearing, but the ferocious sea serpents, descended from the land reptiles, still infested all the seas, and they threatened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fish family.

60:2.10 (688.2) This continued to be, pre-eminently, the age of the dinosaurs. They so overran the land that two species had taken to the water for sustenance during the preceding period of sea encroachment. These sea serpents represent a backward step in evolution. While some new species are progressing, certain strains remain stationary and others gravitate backward, reverting to a former state. And this is what happened when these two types of reptiles forsook the land.

60:2.11 (688.3) As time passed, the sea serpents grew to such size that they became very sluggish and eventually perished because they did not have brains large enough to afford protection for their immense bodies. Their brains weighed less than two ounc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se huge ichthyosaurs sometimes grew to be fifty feet long, the majority being over thirty-five feet in length. The marine crocodilians were also a reversion from the land type of reptile, but unlike the sea serpents, these animals always returned to the land to lay their eggs.

60:2.12 (688.4) Soon after two species of dinosaurs migrated to the water in a futile attempt at self-preservation, two other types were driven to the air by the bitter competition of life on land. But these flying pterosaurs were not the ancestors of the true birds of subsequent ages. They evolved from the hollow-boned leaping dinosaurs, and their wings were of batlike formation with a spread of twenty to twenty-five feet. These ancient flying reptiles grew to be ten feet long, and they had separable jaws much like those of modern snakes. For a time these flying reptiles appeared

공중을 날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만한 종류로 진화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새의 조상으로서 살아남지 못한 대표적 계통이다.

이 기간에 거북이류가 증가했고, 최초로 **북아메리카**에 나타났다. 이것들의 조상은 북쪽에 있는 연결육지의 길을 통해 **아시아**에서 왔다.

1억 년 전에,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공룡은, 거대한 몸집에 비교할 때 뇌가 거의 없는 동물과 마찬가지로였고, 그런 거대한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기에는 사고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하여 기능이 둔해진 이 육상 파충류는 점점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진화 과정이 육체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일어났으며, 그런 뇌 발달은 이어지는 동물 진화와 행성 진보에서 각 시기의 특징이 됐다.

파충류의 최고 발달기와 쇠퇴기가 포함된 이 기간은, 거의 2,500만 년에 이르며, **주라기**로 알려져 있다.

3. 백악기꽃_식물 시대 조류 시대

대단한 **백악기**(白堊紀)는, 바다에서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즉 백악을 만드는 풍성한 유공충{有孔蟲}이 현저히 많이 존재한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파충류가 **유란시아**를 지배하던 긴 기간이 이 시대 이후에 끝나게 됐고, 꽃피는 식물과 조류{鳥類} 생명체가 이때 땅 위에 출현했다. 또한 서쪽과 남쪽으로 대륙들이 유동{流動}하던 것도 멈추게 됐고, 거대한 지각 변형이 있었으며, 큰 화산 활동과 함께 용암이 넓게 흘렀다.

앞에 있었던 지질학적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됐을 때, 산봉우리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륙이 물위에 있었다. 그러나 대륙의 땅덩어리들이 계속 유동하자, **태평양** 바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차단{遮斷} 현상이 발생했다. 지질학적 힘들의 충돌로 인해,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멕시코**를 거쳐서 **케이프 혼**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거대한 산맥 전체가 형성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은 지질 역사상 **현대 조산기**{造山紀}가 됐다. 이 시기 이전에는 산봉우리가 거의 없었고, 매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때 **태평양** 연안 지역이 융기되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해안선에서 서쪽으로 약 700마일 지점에 있었다. **시에라 산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금이 들어 있는 석영층이 이 시기

to be a success, but they failed to evolve along lines which would enable them to survive as air navigators. They represent the nonsurviving strains of bird ancestry.

60:2.13 (688.5) Turtles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first appearing in North America. Their ancestors came over from Asia by way of the northern land bridge.

60:2.14 (688.6) One hundred million years ago the reptilian age was drawing to a close. The dinosaurs, for all their enormous mass, were all but brainless animals, lacking the intelligence to provide sufficient food to nourish such enormous bodies. And so did these sluggish land reptiles perish in ever-increasing numbers. Henceforth, evolution will follow the growth of brains, not physical bulk, and the development of brains will characterize each succeeding epoch of animal evolution and planetary progress.

60:2.15 (688.7) This period, embracing the height and the beginning decline of the reptiles, extended nearly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Jurassic*.

3. THE CRETACEOUS STAGE

THE FLOWERING-PLANT PERIOD

THE AGE OF BIRDS

60:3.1 (688.8) The great Cretaceous period derives its name from the predominance of the prolific chalk-making foraminifers in the seas. This period brings Urantia to near the end of the long reptilian dominance and witnesses the appearance of flowering plants and bird life on land. These are also the times of the termination of the westward and southward drift of the continents, accompanied by tremendous crustal deformations and concomitant widespread lava flows and great volcanic activities.

60:3.2 (689.1) Near the close of the preceding geologic period much of the continental land was up above water, although as yet there were no mountain peaks. But as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it met with the first great obstruction on the deep floor of the Pacific. This contention of geologic forces gave impetus to the formation of the whole vast north and south mountain range extending from Alaska down through Mexico to Cape Horn.

60:3.3 (689.2) This period thus becomes the *modern mountain-building stage* of geologic history. Prior to this time there were few mountain peaks, merely elevated land ridges of great width. Now the Pacific coast range was beginning to elevate, but it was located seven hundred miles west of the present shore line. The Sierras were beginning to

에 용암 분출의 산물로 형성됐다. **북 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압력으로 인해 또한 땅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10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의 일부분이 물위로 충분히 올라왔다. **아메리카** 대륙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됐고, 그 결과, **남 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변형됐으며, **북 아메리카**의 서부 평원이 서서히 융기했다. **멕시코** 지역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남 **대서양** 물이 **남 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침범했으며, 결국 현재의 해안선까지 밀고 들어갔다. 그때 **대서양**과 **인도양**은 현재와 비슷했다.

95,000,000년 전에, **아메리카**와 **유럽** 땅 덩어리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남부의 바다들이 **북 아메리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북쪽으로 확대돼서 **북극해**와 합류했으며, 그 대륙이 두 번째로 크게 침수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 바다가 최종적으로 물러갔을 때, 현재와 비슷한 대륙이 나타났다. 이런 거대한 침수 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아팔라치아** 고지대들이 거의 침식되어 해수면과 같아졌다. 오늘날 질그릇 만들기에 사용되는, 순수한 점토질인 여러 색의 지층들은, 이 시기 동안 **대서양** 연안에 퇴적됐고, 평균 두께는 약 2,000피트에 이른다.

거대한 화산 작용이, **알프스** 남부 지역과 현재의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있는 산맥의 줄기를 따라서 발생했다. 수 없이 긴 세월 중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들이 **멕시코**에서 발생했다. **유럽**, **러시아**, **일본**, 및 **남 아메리카** 남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는 점점 더 다양해졌다.

90,000,000년 전에, 초기 **백악기**의 바다로부터 속씨식물이 발생했고, 곧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이 육상 식물은, 무화과나무, 목련, 및 튕립나무와 함께 **감자기** 나타났다. 이 시기 이후에 곧, 무화과나무, 빵열매나무, 그리고 종려나무가 **유럽**과 **북 아메리카** 평원 서부 지역에 퍼졌다. 새로운 육상 동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85,000,000년 전에, **베링 해협**이 막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이 차단됐다. 그리하여 **대서양 만**의 물속에 있는 해양 생명체와, **태평양**에 있는 해양 생명체가, 이 두 바닷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크게 달라지게 됐는데, 지금은 온도가 같다.

백악과 녹색 모래흙의 퇴적층으로 인해 이 기간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여러 색으로 돼있고, 백악, 이판암, 사암, 그리고 적은 양의 석회암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나쁜 석탄 또는 갈탄도 포함돼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form, their gold-bearing quartz strata being the product of lava flows of this epoch. In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tlantic sea pressure was also working to cause land elevation.

60:3.4 (689.3) 100,000,000 years ago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nd a part of Europe were well above water. The warping of the American continents continued, resulting in the metamorphosing of the South American Andes and in the gradual elevation of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Most of Mexico sank beneath the sea, and the southern Atlantic encroached on the eastern coast of South America, eventually reaching the present shore line. The Atlantic and Indian Oceans were then about as they are today.

60:3.5 (689.4) 95,000,000 years ago the American and European land masses again began to sink. The southern seas commenced the invasion of North America and gradually extended northward to connect with the Arctic Ocean, constituting the second greatest submergence of the continent. When this sea finally withdrew, it left the continent about as it now is. Before this great submergence began, the eastern Appalachian highlands had been almost completely worn down to the water's level. The many colored layers of pure clay now used for the manufacture of earthenware were laid down over the Atlantic coast regions during this age, their average thickness being about 2,000 feet.

60:3.6 (689.5) Great volcanic actions occurred south of the Alps and along the line of the present California coast-range mountains. The greatest crustal deformations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took place in Mexico. Great changes also occurred in Europe, Russia, Japan, and southern South America. The climate became increasingly diversified.

60:3.7 (689.6) 90,000,000 years ago the angiosperms emerged from these early Cretaceous seas and soon overran the continents. These land plants suddenly appeared along with fig trees, magnolias, and tulip trees. Soon after this time fig trees, breadfruit trees, and palms overspread Europe and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No new land animals appeared.

60:3.8 (689.7) 85,000,000 years ago the Bering Strait closed, shutting off the cooling waters of the northern seas. Theretofore the marine life of the Atlantic-Gulf waters and that of the Pacific Ocean had differed greatly, owing to the temperature variations of these two bodies of water, which now became uniform.

60:3.9 (689.8) The deposits of chalk and greensand marl give name to this period. The sedimentations of these times are variegated, consisting of chalk, shale, sandstone, and small amounts of limestone, together with inferior coal or lignite, and

석유도 섞여 있다. 이 지층의 두께는, 어떤 지역에서 200피트부터, **북 아메리카**의 서부지역과 수많은 **유럽** 지방에서 일부 10,00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로키 산맥**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서, 이 퇴적층은 기울어진 구릉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단층은 백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었고, 구멍이 많은 유사암석으로 구성된 이 지층은, 위쪽으로 노출돼 있는 곳으로 물을 받아들이고, 아래쪽으로 흘러보냄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조한 지역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80,000,000년 전에, 지각에 큰 교란이 발생했다. 유동하던 대륙의 서쪽 방향 진행은 멈췄고, 뒤에서 밀려오는 대륙 덩어리의 완만한 운동으로 말미암은 거대한 에너지로 인해, **남_북 아메리카** 전체의 **태평양** 해안선이 위로 구겨졌으며, 이에 반응해서, 심한 변화가 **아시아**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시작됐다. 오늘날의 산맥이 된 **태평양** 주변의 육지 융기는 25,000마일 이상의 길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기자마자 융기된 이것들은, **유란시아**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로 가장 크게 표면이 일그러진 경우에 해당됐다. 용암의 흐름이 땅 위와 아래에서 광범한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다.

75,000,000년 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다. **알래스카**에서 **케이프 혼**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산맥들이 완성됐으나, 산봉우리는 아직 소수만 있었다.

유동이 정지된 대륙의 역단층{逆斷層}이, 이 **북 아메리카** 서부 평원의 고도를 계속 높였고, 한편 동부에서는, **대서양** 해안 지역의 약화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솟았다.

70,000,000년 전에, **로키산맥** 지역이 최고도로 융기되면서, 지표면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큰 바위 조각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지표면에, 15마일에 걸쳐서 단층을 형성했으며;여기서 **캠브리아기** 암석이, **백악기** 지층들 위로 비스듬히 솟아 나왔다. **캐나다** 국경선 가까이 있는, **로키산맥**의 동쪽 기슭에서는, 다른 단층 현상이 장관을 이뤘으며;여기서는 그 후에 조성된 **백악기** 퇴적층들 위로 밀려나온, 생명체_이전[以前]의 암석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작은 화산 분화구가 독립적으로 솟아올랐다. 가라앉아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했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 역시, 여전히 물밑에 있었다.

65,000,0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암 분출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다. 이때 퇴적된 지층

in many regions they contain oil. These layers vary in thickness from 200 feet in some places to 10,000 feet in western North America and numerous European localities. Along the eastern borders of the Rocky Mountains these deposits may be observed in the uptilted foothills.

60:3.10 (690.1) All over the world these strata are permeated with chalk, and these layers of porous semirock pick up water at upturned outcrops and convey it downward to furnish the water supply of much of the earth's present arid regions.

60:3.11 (690.2) 80,000,000 years ago great disturbances occurred in the earth's crust. The western advance of the continental drift was coming to a standstill, and the enormous energy of the sluggish momentum of the hinter continental mass upcrumpled the Pacific shore line of both North and South America and initiated profound repercussional changes along the Pacific shores of Asia. This circumpacific land elevation, which culminated in present-day mountain ranges, is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miles long. And the upheavals attendant upon its birth were the greatest surface distortions to take place since life appeared on Urantia. The lava flows, both above and below ground, were extensive and widespread.

60:3.12 (690.3) 75,000,000 years ago marks the end of the continental drift. From Alaska to Cape Horn the long Pacific coast mountain ranges were completed, but there were as yet few peaks.

60:3.13 (690.4) The backthrust of the halted continental drift continued the elevation of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while in the east the worn-down Appalachian Mountains of the Atlantic coast region were projected straight up, with little or no tilting.

60:3.14 (690.5) 70,000,000 years ago the crustal distortions connected with the maximum elevation of the Rocky Mountain region took place. A large segment of rock was overthrust fifteen miles at the surface in British Columbia; here the Cambrian rocks are obliquely thrust out over the Cretaceous layers. On the eastern slope of the Rocky Mountains, near the Canadian border, there was another spectacular overthrust; here may be found the prelife stone layers shoved out over the then recent Cretaceous deposits.

60:3.15 (690.6) This was an age of volcanic activity all over the world, giving rise to numerous small isolated volcanic cones. Submarine volcanoes broke out in the submerged Himalayan region. Much of the rest of Asia, including Siberia, was also still under water.

60:3.16 (690.7) 65,000,000 years ago there occurred one of the greatest lava flows of all time. The deposition layers of these and preceding lava

과 그 전에 흘러 나왔던 용암층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과 **남_북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육상 동물은 거의 변화 없었지만, 거대한 대륙의 출현으로 인해, 특히 **북 아메리카**에서 빠르게 번식했다. **북 아메리카**는 이 시기의 육상 동물 진화가 많이 일어난 곳이었고, **유럽**의 대부분은 물 밑에 있었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했다. 북극 지역의 날씨는 오늘날 **북 아메리카**의 중부 및 남부 지역의 기후와 거의 흡사한, 쾌적한 날씨였다.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육상{陸上} 식물 중에서 속씨식물류가 선점했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많은 나무가 처음 출현했으며,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오크나무,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그리고 개량된 종려나무 등이 포함됐다. 과일나무, 초원, 및 곡식류가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의 조상이 동물계를 구성한 것처럼, 이런 씨 맺는 풀과 나무들이 식물계를 구성했다--이것들은 사람 자체의 출현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진화였다.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변화 없이, 꽃피는 수많은 식물류가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식물이 곧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60,000,000년 전에, 육상 파충류가 줄어들었지만, 공룡은 여전히 육지의 지배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주도권은 육식을 하는 공룡 가운데 비교적 작고 경충경충 뛰는 캥거루 종류의, 더 기민하고 활동적인 유형들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앞선 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초식 공룡이 출현했었고,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된 것은, 육상 식물에 속하는 풀 종류가 나타난 데 기인한다. 풀을 먹는 이 새로운 공룡 가운데 하나는, 어깨 둘레에 갑옷 같은 것이 있고 두 뿔을 가진, 순수한 네 발 짐승이었다. 직경이 20피트에 이르는, 육지에서 사는 유형의 거북이가 출현했고, 현재와 같은 유형의 악어와 뱀도 나타났다. 어류를 비롯해서 기타 해양 생명체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던, 조류 이전의 초기 동물은 공중에서 날지 못했고, 익룡{翼龍}도 마찬가지였다. 이 종족들은 수명이 짧았고, 곧 사라졌다. 이것들 역시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룡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소멸됐다. 이 시대와 바로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포유 동물을 조성하려던 미숙한 시도{試圖}가 실패했듯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을 산출하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

55,000,000년 전에, 최초의 진짜 조류, 즉 모든 조류 생명체의 선조가 됐던 작은 비둘기 형태의 피조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에 획기적 진보가 이뤄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나타났던, 날아다니는 피조물 중에서 셋째 유형이었으며, 당대

flows are to be found all over the Americas, North and South Africa, Australia, and parts of Europe.

60:3.17 (690.8) The land animals were little changed, but because of greater continental emergence, especially in North America, they rapidly multiplied. North America was the great field of the land-animal evolution of these times, most of Europe being under water.

60:3.18 (690.9) The climate was still warm and uniform. The arctic regions were enjoying weather much like that of the present climate in central and southern North America.

60:3.19 (690.10) Great plant-life evolution was taking place. Among the land plants the angiosperms predominated, and many present-day trees first appeared, including beech, birch, oak, walnut, sycamore, maple, and modern palms. Fruits, grasses, and cereals were abundant, and these seed-bearing grasses and trees were to the plant world what the ancestors of man were to the animal world — they were second in evolutionary importance only to the appearance of man himself. *Suddenly* and without previous gradation, the great family of flowering plants mutated. And this new flora soon overspread the entire world.

60:3.20 (691.1) 60,000,000 years ago, though the land reptiles were on the decline, the dinosaurs continued as monarchs of the land, the lead now being taken by the more agile and active types of the smaller leaping kangaroo varieties of the carnivorous dinosaurs. But sometime previously there had appeared new types of the herbivorous dinosaurs, whose rapid increase was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grass family of land plants. One of these new grass-eating dinosaurs was a true quadruped having two horns and a capelike shoulder flange. The land type of turtle, twenty feet across, appeared as did also the modern crocodile and true snakes of the modern type. Great changes were also occurring among the fishes and other forms of marine life.

60:3.21 (691.2) The wading and swimming prebirds of earlier ages had not been a success in the air, nor had the flying dinosaurs. They were a short-lived species, soon becoming extinct. They, too, were subject to the dinosaur doom, destruction, because of having too little brain substance in comparison with body size. This second attempt to produce animals that could navigate the atmosphere failed, as did the abortive attempt to produce mammals during this and a preceding age.

60:3.22 (691.3) 55,000,000 years ago the evolutionary march was marked by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first of the *true birds*, a small pigeonlike creature which was the ancestor of all bird life. This was the third type of flying creature to appear

에 있었던 익룡에서, 또는 비교적 초기 유형의 이빨을 가진 육상 조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에서 직접 발생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됐다.

4. 백악기가 끝남

긴 **백악기**가 끝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바다가 대륙을 크게 침수시켰던 기간도 끝나게 됐다. 특히 이것은 **북 아메리카**에서 두드러졌고, 정확히 스물네 번의 거대한 침수 현상이 있었다. 그 후에도 사소한 침수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 중에 일어났던, 광대하고 긴 기간의 해양 침해 과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육지와 바다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던 이 기간들은 100만 년 주기로 발생했다. 해양 바닥과 대륙의 고도가 오르내림과 관련된 긴 기간의 규칙적인 반복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주기적인 지각운동이, 이때부터 전체 지구 역사 동안 계속됐지만, 빈도(頻度)와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고, **유란시아**의 현대 산맥들이 조성됐다. 그러나 대륙 땅덩어리들의 압력과 오랫동안 유동하던 추진력의 반작용만이 산맥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산맥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 근원적인 주요 요소는, 육지의 침식으로 생긴 비교적 가벼운 퇴적물과, 앞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 표류물로 채워진 선재하던 저지대 또는 해구(海溝)였다. 이런 가벼운 육지 지역의 두께가 15,000내지 20,000피트에 이르렀으며; 지각이 어떤 원인으로든지 압력을 받게 됐을 때, 지각 속에서, 또는 그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충돌력과 압력에 대해 보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이 지역들이 먼저 구김살이 잡히고 접혀지면서 위로 솟았다. 때로는 이런 땅의 융기가 접혀지는 현상 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로키 산맥**이 융기된 경우에는, 거대한 접혀짐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함께 지표면과 땅 속에서 다양한 지층이 거대한 단층을 이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은, **아시아, 그린랜드, 및 유럽**에 있는 동_서 방향으로 조직된 오래된 지역들에 있다. 중간 나이의 산맥들은, **태평양** 주변의 무리들과, 거의 같은 무렵에 형성된 동_서 방향으로 조직된 **유럽**의 제2차 지역에 있다. 거대한 이 상승 현상은 길이가 거의 10,000마일에 이르며, **유럽**에서부터 **서인도제도**의 융기된 땅까지 뻗어 있다. 가장 늦게 생긴 산맥은 **로키 산맥** 체계 속에 있으며, 거기에 높은 지대들이 섬으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오직 여러 시대 동안 바다가 연속적으로 덮여버린 것 때문에 땅이 융기됐다. 중간

on earth, and it sprang directly from the reptilian group, not from the contemporary flying dinosaurs nor from the earlier types of toothed land birds. And so this becomes known as the *age of birds* as well as the declining age of reptiles.

4. THE END OF THE CHALK PERIOD

60:4.1 (691.4) The great Cretaceous period was drawing to a close, and its termination marks the end of the great sea invasions of the continents. Particularly is this true of North America, where there had been just twenty-four great inundations. And though there were subsequent minor submergences, none of these can be compared with the extensive and lengthy marine invasions of this and previous ages. These alternate periods of land and sea dominance have occurred in million-year cycles. There has been an agelong rhythm associated with this rise and fall of ocean floor and continental land levels. And these same rhythmical crustal movements will continue from this time on throughout the earth's history but with diminishing frequency and extent.

60:4.2 (691.5) This period also witnesses the end of the continental drift and the building of the modern mountains of Urantia. But the pressure of the continental masses and the thwarted momentum of their agelong drift are not the exclusive influences in mountain building. The chief and underly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location of a mountain range is the pre-existent lowland, or trough, which has become filled up with the comparatively lighter deposits of the land erosion and marine drifts of the preceding ages. These lighter areas of land are sometimes 15,000 to 20,000 feet thick; therefore, when the crust is subjected to pressure from any cause, these lighter areas are the first to crumple up, fold, and rise upward to afford compensatory adjustment for the contending and conflicting forces and pressures at work in the earth's crust or underneath the crust. Sometimes these upthrusts of land occur without folding. But in connection with the rise of the Rocky Mountains, great folding and tilting occurred, coupled with enormous overthrusts of the various layers, both underground and at the surface.

60:4.3 (692.1) The oldest mountains of the world are located in Asia, Greenland, and northern Europe among those of the older east-west systems. The mid-age mountains are in the circumpacific group and in the second European east-west system, which was born at about the same time. This gigantic uprising is almost ten thousand miles long, extending from Europe over into the West Indies land elevations. The youngest mountains are in the Rocky Mountain system, where, for ages, land elevations had occurred only to be

나이의 산맥들이 형성된 이후에, 진정한 산악 고지대가 융기됐고, 결국 자연 요소들의 복합적인 기교로 말미암아 예술적으로 깎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로키 산맥**이 형성됐다.

북 아메리카에 있는 현재의 **로키 산맥** 지역은, 융기{隆起}됐던 땅 그대로가 아니며, 오랫동안 침식{浸蝕}되어 평평해진 후에 다시 융기됐다. 현재의 산맥 앞면은 다시 융기됐던 원래 산맥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다. **파이크스 봉우리**와 **롱스 봉우리**는,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으로 산이 남아 있음으로써, 이런 조산{造山}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두 봉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침수 동안에도 물 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육지 위와 물 밑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활동적인 기간이었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줄어든 반면, 성게는 증가했다. 앞에 있던 기간에 압도적 영향을 미쳤던 암모나이트가 급속도로 쇠퇴했다. 땅 위에서는, 거대한 아메리카삼나무를 포함해서 소나무와 기타 현대의 나무들이 대부분의 양치류 숲을 대체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태반을 갖는 포유류가 아직 진화되지 못했지만, 미래의 포유류 유형들이 되기 위한 초기 선조가 그 다음 시대에 출현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무대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육상 생명체가 출현하던 초기부터, 인류의 바로 앞 조상과 그와 평행으로 나타난 여러 지류들로 구성된 최근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진화가 이뤄진 긴 시대가 끝나게 됐다. **백악기**인 이 시대는 5,000만 년 기간이었고, **중생대**라고 알려진, 1억 년 기간에 해당되는 포유류 이전의 육상 생명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사타니아**에 배정됐고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successively covered by the sea, though some of the higher lands remained as islands. Subsequent to the formation of the mid-age mountains, a real mountain highland was elevated which was destined, subsequently, to be carved into the present Rocky Mountains by the combined artistry of nature's elements.

60:4.4 (692.2) The present North American Rocky Mountain region is not the original elevation of land; that elevation had been long since leveled by erosion and then re-elevated. The present front range of mountains is what is left of the remains of the original range which was re-elevated. Pikes Peak and Longs Peak are outstanding examples of this mountain activity, extending over two or more generations of mountain lives. These two peaks held their heads above water during several of the preceding inundations.

60:4.5 (692.3) Biologically as well as geologically this was an eventful and active age on land and under water. Sea urchins increased while corals and crinoids decreased. The ammonites, of preponderant influence during a previous age, also rapidly declined. On land the fern forests were largely replaced by pine and other modern trees, including the gigantic redwoods. By the end of this period, while the placental mammal has not yet evolved, the biologic stage is fully set for the appearance, in a subsequent age, of the early ancestors of the future mammalian types.

60:4.6 (692.4) And thus ends a long era of world evolution, extending from the early appearance of land life down to the more recent times of the immediate ancestors of the human species and its collateral branches. This, the *Cretaceous* age, covers fifty million years and brings to a close the premammalian era of land life, which extends over a period of one hundred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Mesozoic*.

60:4.7 (692.5) [Present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assigned to Satania and now functioning on Urantia.]

제61편. 유란시아의 포유동물 시대

⇨ 060

유란시아 책

06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1편

유란시아의 포유동물 시대

섹션

소개

1. 새로운 대륙 형성기 초기 포유동물 시대
2. 최근의 홍수기 고등 포유동물 시대
3. 현대의 조산기 코끼리와 말의 시대
4. 최근의 대륙_융기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5. 초기 빙하시대
6. 빙하시대의 원시인
7. 계속되는 빙하기

소개

포유동물 시대는, 태반(胎盤)이 있는 포유동물이 기원된 시기부터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약 5천만 년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다.

이 **신생대** 기간에, 세상의 경치는 매혹적인 모습--곧 완만한 높낮이의 언덕, 넓은 계곡, 넓은 강, 그리고 울창한 삼림--을 보여줬다. 이 기간에 **파나마 지협**(地峽)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는 세 번 오르내렸다. 동물 유형은 숫자도 많고 다양했다. 최상의 상태로 진화해 가려는 동물 중(種)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새들이 떼로 있었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낙원이었다.

다섯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천만 년 시대 동안 누적된 퇴적층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의 화석 기록을 간직하고 있으며, 바로 사람이 나

PAPER 61

THE MAMMALIAN ERA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w Continental Land Stage
The Age of Early Mammals
2. The Recent Flood Stage
The Age of Advanced Mammals
3. The Modern Mountain Stage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4. The Recent Continental-Elevation Stage
The Last Great Mammalian Migration
5. The Early Ice Age
6. Primitive Man in the Ice Age
7. The Continuing Ice Age

INTRODUCTION

61:0.1 (693.1) THE era of mammals extends from the times of the origin of placental mammals to the end of the ice age, covering a little less than fifty million years.

61:0.2 (693.2) During this Cenozoic age the world's landscape presented an attractive appearance — rolling hills, broad valleys, wide rivers, and great forests. Twice during this sector of time the Panama Isthmus went up and down; three time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did the same. The animal types were both many and varied. The trees swarmed with birds, and the whole world was an animal paradise, notwithstanding the incessant struggle of the evolving animal species for supremacy.

61:0.3 (693.3) The accumulated deposits of the five periods of this fifty-million-year era contain the fossil records of the successive mammalian

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1. 새로운 대륙 형성기 초기 포유동물 시대

50,000,000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은 거의 대부분 물위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매우 적었다. 이 기간의 지층과 퇴적물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됐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뤄졌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됐지만, 동시에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이 기간 초기에, **북 아메리카**에서 포유동물 유형이 **갑자기** 출현했고, 이것들은 이때까지 이뤄진 진화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전에 태반(胎盤) 없는 포유동물 종들이 존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이 동물은, 선재(先在)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 **갑자기** 나타났으며, 파충류 후손은 공룡이 쇠퇴하던 시기까지도 존속했다.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의 조상은, 작고, 매우 활동적이며, 육식 동물이었고, 펄쩍펄쩍 뛰는 유형인, 일종의 공룡이었다.

포유류의 기본적인 본능이 이런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유동물은 다른 모든 동물 생명체 형태보다 훨씬 유리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다:

1. 비교적 성숙되고 잘_발육된 새끼를 낳을 수 있었다.
2. 자기 새끼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며 보호할 수 있었다.
3. 자신을_존속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지능을 사용했다.
4. 적으로부터 도망칠 때, 증진된 민첩성을 활용했다.
5. 우세한 사고력을 사용해서 환경을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었다.

45,000,000년 전에, 해안선이 매우 광범하게 가라앉은 것과 관련해서, 대륙의 중심 지대들이 융기됐다. 포유류 생명체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었다. 작은 파충류, 알을 낳아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동물이 번성했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류, 발이 빠른 코뿔소류, 주둥이가 긴 맥(獾)류, 원시적인 돼지류, 다람쥐류, 여우원숭이류, 주머니쥐류,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여러 부류의 동물이 생겨났다. 이것들은 모두 작았고, 원시적이었으며, 산악 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했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땅위에서 사는 큰 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후대의 거대한 여객용 새의 조상이었는데, 이 새는 매우 지능이 높았고, 한때 공중을 날면서 인간을 운

dinasties and lead right up through the times of the actual appearance of man himself.

1. THE NEW CONTINENTAL LAND STAGE THE AGE OF EARLY MAMMALS

61:1.1 (693.4) 50,000,000 years ago the land areas of the world were very generally above water or only slightly submerged. The formations and deposits of this period are both land and marine, but chiefly land. For a considerable time the land gradually rose but was simultaneously washed down to the lower levels and toward the seas.

61:1.2 (693.5) Early in this period and in North America the placental type of mammals *suddenly* appeared, and they constituted the most important evolutionary development up to this time. Previous orders of nonplacental mammals had existed, but this new type sprang directly and *suddenly* from the pre-existent reptilian ancestor whose descendants had persisted on down through the times of dinosaur decline. The father of the placental mammals was a small, highly active, carnivorous, springing type of dinosaur.

61:1.3 (693.6) Basic mammalian instincts began to be manifested in these primitive mammalian types. Mammals possess an immense survival advantage over all other forms of animal life in that they can:

- 61:1.4 (693.7) 1. Bring forth relatively mature and well-developed offspring.
- 61:1.5 (693.8) 2. Nourish, nurture, and protect their offspring with affectionate regard.
- 61:1.6 (693.9) 3. Employ their superior brain power in self-perpetuation.
- 61:1.7 (693.10) 4. Utilize increased agility in escaping from enemies.
- 61:1.8 (693.11) 5. Apply superior intelligence to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adaptation.

61:1.9 (694.1) 45,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al backbones were elevated in association with a very general sinking of the coast lines. Mammalian life was evolving rapidly. A small reptilian, egg-laying type of mammal flourished, and the ancestors of the later kangaroos roamed Australia. Soon there were small horses, fleet-footed rhinoceroses, tapirs with proboscises, primitive pigs, squirrels, lemurs, opossums, and several tribes of monkeylike animals. They were all small, primitive, and best suited to living among the forests of the mountain regions. A large ostrichlike land bird developed to a height of ten feet and laid an egg nine by thirteen inches. These were the ancestors of the later gigantic passenger birds that were so highly intelligent, and that onetime

반해 주기도 했다.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은, 땅 위, 물속, 공중, 및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이것들은 한 쌍에서 열한 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 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됐고, 몸통에 비해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는 현대의 형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40,000,000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루었으며, 용암 분출, 뒤틀림 현상, 및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육상 활동들이 뒤따랐다.

이 시기의 후반에는 **유럽** 대부분이 침수됐다. 약간의 육지가 융기된 후에, 그 대륙에는 많은 호수와 만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당시에 북쪽으로 확장돼 있던 **지중해**, **알프스**의 고지대들, **카르파티아 산맥**, **아페니노 산맥**,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섬처럼 물위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됐다. **파나마 지협**{地峽}이 융기됐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됐다. **북 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로 **아시아**와 연결됐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랜드**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됐다. 북부 위도{緯度} 지역에 있는 땅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 해협** 때문에 차단됐고, 그 해협은 확장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됐다.

상당한 유공충류{有孔蟲類}의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됐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 10,000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 16,000피트 높이로, **티벳** 지역에서 20,000피트 높이로 솟아 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白堊}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의 해안선을 따라, **남 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된다.

소위 **시신세**{始新世}라고 불리는 이 기간 내, 포유류 및 관련된 다른 생명체의 진화는, 거의 또는 전혀 중단 없이 계속됐다. 그때 **북 아메리카**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과 육지를 통해서 연결돼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 포유류 군{群}으로 가득 차게 됐다.

2. 최근의 홍수기 고등 포유동물 시대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한 것인데, 이들은 이 기간에 발달하던 포유류 생명체 중에서 더욱 진보된 형태였다.

태반을 가진 초기 포유동물이, 육식{肉食} 조

transported human beings through the air.

61:1.10 (694.2) The mammals of the early Cenozoic lived on land, under the water, in the air, and among the treetops. They had from one to eleven pairs of mammary glands, and all were covered with considerable hair. In common with the later appearing orders, they developed two successive sets of teeth and possessed large brains in comparison to body size. But among them all no modern forms existed.

61:1.11 (694.3) 40,000,000 years ago the land areas of the Northern Hemisphere began to elevate, and this was followed by new extensive land deposits and other terrestrial activities, including lava flows, warping, lake formation, and erosion.

61:1.12 (694.4) During the latter part of this epoch most of Europe was submerged. Following a slight land rise the continent was covered by lakes and bays. The Arctic Ocean, through the Ural depression, ran south to connect with the Mediterranean Sea as it was then expanded northward, the highlands of the Alps, Carpathians, Apennines, and Pyrenees being up above the water as islands of the sea. The Isthmus of Panama was up;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were separated. North America was connected with Asia by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and with Europe by way of Greenland and Iceland. The earth circuit of land in northern latitudes was broken only by the Ural Straits, which connected the arctic seas with the enlarged Mediterranean.

61:1.13 (694.5) Considerable foraminiferal limestone was deposited in European waters. Today this same stone is elevated to a height of 10,000 feet in the Alps, 16,000 feet in the Himalayas, and 20,000 feet in Tibet. The chalk deposits of this period are found along the coasts of Africa and Australia, on the west coast of South America, and about the West Indies.

61:1.14 (694.6) Throughout this so-called *Eocene* period the evolution of mammalian and other related forms of life continued with little or no interruption. North America was then connected by land with every continent except Australia, and the world was gradually overrun by primitive mammalian fauna of various types.

2. THE RECENT FLOOD STAGE

THE AGE OF ADVANCED MAMMALS

61:2.1 (694.7)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further and rapid evolution of placental mammals, the more progressive forms of mammalian life developing during these times.

61:2.2 (694.8) Although the early placental mammals sprang from carnivorous ancestors, very soon

상으로부터 발생했지만, 초식성 종류들이 곧 이어 발달했고, 오래지 않아 잡식성 포유류 계통도 나타났다. 속씨식물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의 중요한 먹이가 됐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식물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의 육상 식물 군이 비교적 초기 기간에 출현했다.

35,000,000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 연결육지가 확장되어, 당시에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 아메리카**, **남 아프리카**, 및 **오스트랄리아**에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열대성 바다들이 크게 확장됐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 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했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발생했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됐다.

괄목할만한 변화가, 행성에 있는 동물 군에 발생했다. 해양 생명체는 큰 변경을 겪었고, 오늘날과 같은 종류의 해양 생명체 대부분이 실존했으며, 유공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곤충 생명체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에 있는 **플로리산트** 화석 시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됐다. 살아있는 곤충 계통 대부분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 현존하던 것들 중에서 많이 멸종됐고, 지금은 화석만 남아 있다.

이 시기에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히 개량되고 넓게 퍼져 나갔다. 전에 있었던, 더 원시적인 형태 중에서 100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도 곧 사라졌다. 외피(外皮)의 유무(有無)와 몸체의 크기 대신,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공통 과가 서서히 줄면서, 점차 포유동물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것들의 파충류 조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멸종시켰다.

공룡이 사라지면서, 도마뱀과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에게 큰 변화가 발생했다. 초기의 파충류 동물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해 거북이류와 뱀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을 대표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단이다.

다양한 종류의 포유동물은, 오늘날 사라진 어느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했다. 육식 동물이었던 이 피조물은, 고양이와 물개 사이의 잡종에 해당했으며, 땅과 물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지능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개과(犬科)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돼 나타났고, 수많은 종(種)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해, 이로 잡아먹는 설치(楔齒) 동물이 나타나서 주목할 만한 형태의 생명체가 됐고, 이 계통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에는, 개, 고양이, 너구

herbivorous branches developed, and, ere long, omnivorous mammalian families also sprang up. The angiosperms were the principal food of the rapidly increasing mammals, the modern land flora, including the majority of present-day plants and trees, having appeared during earlier periods.

61:2.3 (695.1) 35,000,000 years ago marks the beginning of the age of placental-mammalian world domination. The southern land bridge was extensive, reconnecting the then enormous Antarctic continent with South America, South Africa, and Australia. In spite of the massing of land in high latitudes, the world climate remained relatively mild because of the enormous increase in the size of the tropic seas, nor was the land elevated sufficiently to produce glaciers. Extensive lava flows occurred in Greenland and Iceland, some coal being deposited between these layers.

61:2.4 (695.2) Marked changes were taking place in the fauna of the planet. The sea life was undergoing great modification; most of the present-day orders of marine life were in existence, and foraminifers continu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he insect life was much like that of the previous era. The Florissant fossil beds of Colorado belong to the later years of these far-distant times. Most of the living insect families go back to this period, but many then in existence are now extinct, though their fossils remain.

61:2.5 (695.3) On land this was pre-eminently the age of mammalian renovation and expansion. Of the earlier and more primitive mammals, over one hundred species were extinct before this period ended. Even the mammals of large size and small brain soon perished. Brains and agility had replaced armor and size in the progress of animal survival. And with the dinosaur family on the decline, the mammals slowly assumed domination of the earth, speedily and completely destroying the remainder of their reptilian ancestors.

61:2.6 (695.4) Along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dinosaurs, other and great changes occurred in the various branches of the saurian family. The surviving members of the early reptilian families are turtles, snakes, and crocodiles, together with the venerable frog, the only remaining group representative of man's earlier ancestors.

61:2.7 (695.5) Various groups of mammals had their origin in a unique animal now extinct. This carnivorous creature was something of a cross between a cat and a seal; it could live on land or in water and was highly intelligent and very active. In Europe the ancestor of the canine family evolved, soon giving rise to many species of small dogs. About the same time the gnawing rodents, including beavers, squirrels, gophers, mice, and rabbits, appeared and soon became a notable form of life, very little change having since occurred in this family. The later deposits of this

리, 족제비 류의 초기 형태 유골이 들어 있다.

30,000,000년 전에, 현대 유형의 포유동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포유동물이 산에서 사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언덕에서 살았으며; 무늬가 없거나 발굽을 가진 유형의, 풀을 뜯어먹는 종류들이 거기서 갑자기 진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발톱을 갖고 고기를 먹는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풀을 뜯어먹었는데, 다섯 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분화되지 않은 한 종류에서 발생했고, 이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이 기간 내내, 세 발가락 단계 이후에는 발가락의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진화에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馬}은, 빙하기 후기까지도 발달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 기간에 북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했다. 반면에 코뿔소 과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 나갔다. 돼지 비슷한 작은 피조물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돼지, 멧돼지, 및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조상이 됐다. 낙타와 아메리카낙타가 이 기간 중반 경에 북 아메리카에서 생겨나서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됐다. 나중에, 아메리카낙타는 남 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했고, 일부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 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 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됐다.

이 무렵에 특기할만한 일이 북 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했는데: 고대의 여우원숭이의 초기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계통은 순중 원숭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등장은, 순중 원숭이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혈통이 확립됐음을 표시했다.

앞에 있던 시대 동안,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했던 것처럼, 태반을 갖는 어느 포유동물 전체 부류가 이 기간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 남아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물개, 및 바다표범을 이뤘다.

지구에 있는 조류 생명체는 계속 발전했지만,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뚝가리,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및 타조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에 있는 새들 대부분이 존재했다.

1,000만 년에 이르는 이 점진세{漸新世}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체 및 육상 동물과 함께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했고, 오늘날과 흡사하게 땅 위에 존재했다. 광목할만한 분화{分化}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것들 대부분의 조상 형태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period contain the fossil remains of dogs, cats, coons, and weasels in ancestral form.

61:2.8 (695.6) 30,000,000 years ago the modern types of mammals began to make their appearance. Formerly the mammals had lived for the greater part in the hills, being of the mountainous types; suddenly there began the evolution of the plains or hoofed type, the grazing species, as differentiated from the clawed flesh eaters. These grazers sprang from an undifferentiated ancestor having five toes and forty-four teeth, which perished before the end of the age. Toe evolution did not progress beyond the three-toed stage throughout this period.

61:2.9 (695.7) The horse, an outstanding example of evolution, lived during these times in both North America and Europe, though his development was not fully completed until the later ice age. While the rhinoceros family appeared at the close of this period, it underwent its greatest expansion subsequently. A small hoglike creature also developed which became the ancestor of the many species of swine, peccaries, and hippopotamuses. Camels and llamas had their origin in North America about the middle of this period and overran the western plains. Later, the llamas migrated to South America, the camels to Europe, and soon both were extinct in North America, though a few camels survived up to the ice age.

61:2.10 (696.1) About this time a notable thing occurr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 early ancestors of the ancient lemurs first made their appearance. While this family cannot be regarded as true lemurs, their coming mark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ne from which the true lemurs subsequently sprang.

61:2.11 (696.2) Like the land serpents of a previous age which betook themselves to the seas, now a whole tribe of placental mammals deserted the land and took up their residence in the oceans. And they have ever since remained in the sea, yielding the modern whales, dolphins, porpoises, seals, and sea lions.

61:2.12 (696.3) The bird life of the planet continued to develop, but with few important evolutionary changes. The majority of modern birds were existent, including gulls, herons, flamingoes, buzzards, falcons, eagles, owls, quails, and ostriches.

61:2.13 (696.4) By the close of this Oligocene period, covering ten million years, the plant life, together with the marine life and the land animals, had very largely evolved and was present on earth much as today. Considerable specialization has subsequently appeared, but the ancestral forms of most living things were then alive.

3. 현대의 조산기 코끼리와 말의 시대

육지의 융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이 세계의 날씨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기온을 점차 내려가게 했지만,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이아**와 목련이 **그린랜드**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아열대성 식물은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온대 기후의 식물과 나무는 북쪽 위도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비교적 더 강한 식물과 낙엽수가 자라게 됐다.

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 종류의 이빨이 점차 변화해서, 현재처럼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됐다.

25,000,000년 전에, 육지가 융기하던 긴 시대에 뒤이어, 약간의 침수 현상이 있었다. **로키 산맥** 지역은 높이 솟은 상태로 있었으므로, 침식된 물질이 저지대 도처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됐다. **시에라** 지역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했으며; 사실,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20,000,000년 전에는, 포유동물의 실제 황금기였다.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가 물위에 있었고, 네 개의 엄니를 가진 매스토돈,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 과(科)를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북 아메리카**로 이주했다.

최초의 사슴이 나타났고, **북 아메리카**에는 반추(反芻) 동물이--곧 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가-- 가득했지만,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는 멸종됐다.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들은,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지녔고, 곧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졌다. 이번에는, 계속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큰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 시대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었으므로, 코끼리처럼 큰 동물은 큰 뇌와 우수한 특성의 뇌를 갖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고력과 적응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할 정도의 동물로는 말뿐이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했다. 그렇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현존했던 50가지의 코끼리 중에서 두 종류만 살아남았다.

15,000,000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 지대들이 융기됐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3. THE MODERN MOUNTAIN STAGE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61:3.1 (696.5) Land elevation and sea segregation were slowly changing the world's weather, gradually cooling it, but the climate was still mild. Sequoias and magnolias grew in Greenland, but the subtropical plants were beginning to migrate southward.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se warm-climate plants and trees had largely disappeared from the northern latitudes, their places being taken by more hardy plants and the deciduous trees.

61:3.2 (696.6) There was a great increase in the varieties of grasses, and the teeth of many mammalian species gradually altered to conform to the present-day grazing type.

61:3.3 (696.7) 25,000,000 years ago there was a slight land submergence following the long epoch of land elevation. The Rocky Mountain region remained highly elevated so that the deposition of erosion material continued throughout the lowlands to the east. The Sierras were well re-elevated; in fact, they have been rising ever since. The great four-mile vertical fault in the California region dates from this time.

61:3.4 (696.8) 20,000,000 years ago was indeed the golden age of mammal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was up, and many groups of animals migrated to North America from Asia, including the four-tusked mastodons, short-legged rhinoceroses, and many varieties of the cat family.

61:3.5 (696.9) The first deer appeared, and North America was soon overrun by ruminants — deer, oxen, camels, bison, and several species of rhinoceroses — but the giant pigs, more than six feet tall, became extinct.

61:3.6 (697.1) The huge elephants of this and subsequent periods possessed large brains as well as large bodies, and they soon overran the entire world except Australia. For once the world was dominated by a huge animal with a brain sufficiently large to enable it to carry on. Confronted by the highly intelligent life of these ages, no animal the size of an elephant could have survived unless it had possessed a brain of large size and superior quality. In intelligence and adaptation the elephant is approached only by the horse and is surpassed only by man himself. Even so, of the fifty species of elephants in existence at the opening of this period, only two have survived.

61:3.7 (697.2) 15,000,000 years ago the mountain regions of Eurasia were rising, and there was some volcanic activity throughout these regions, but nothing comparable to the lava flows of the Western Hemisphere. These unsettled conditions prevailed all over the world.

지브롤터 해협이 닫혔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연결육지로 연결됐지만, **지중해**는 **블란서**를 가로질러 뻗은 좁은 수로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흘렀으며, 산봉우리와 고지대들이 고대의 이 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 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후대에는, 이 **지중해**가 **인도양**과 연결됐고, 한편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해서 **지중해**는 한동안 염분을 가진 내륙해{內陸海}가 됐다.

아이슬랜드 연결육지가 가라앉고 북극해는 **대서양**과 혼합됐다. **북 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히 냉각됐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 거대한 해류가 작용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줬다.

포유류 생명체는 계속 진화했다. 수많은 말떼가 **북 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와 합류했고; 진정으로 코끼리 시대인 동시에 말의 시대였다. 말의 너는 동물 자질 면에서 코끼리의 너 다음으로 발달해 있었으나, 깜짝 놀랐을 때 도망치는 고질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했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했고, 한편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이 기간에 코끼리와 말, 이 둘을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해서 나타났지만, 고양이 과의 동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곧 도태됐다.

유라시아가 소위 “말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춰 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용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이용했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유익을 줬고, 인간의 문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에 이뤄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난 사람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여했다. 중앙 **아시아**에서 순종 유형의 원시 원숭이와 고릴라가, 지금은 멸종된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러나 이 종류 가운데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의 선조가 되는 생물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몇 개의 군{群}, 특히 이리와 여우가 개 과를 대표했으며; 고양이류를 표범,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대표했고, 후자는 **북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해서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 과와 개 과가 전 세계에 걸쳐 번성했다. 족제비, 담비, 수달, 및 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성했다.

새들이 계속 진화했지만, 특기할만한 변화는

61:3.8 (697.3) The Strait of Gibraltar closed, and Spain was connected with Africa by the old land bridge, but the Mediterranean flowed into the Atlantic through a narrow channel which extended across France, the mountain peaks and highlands appearing as islands above this ancient sea. Later on, these European seas began to withdraw. Still later, the Mediterranean was connected with the Indian Ocean, while at the close of this period the Suez region was elevated so that the Mediterranean became, for a time, an inland salt sea.

61:3.9 (697.4) The Iceland land bridge submerged, and the arctic waters commingled with those of the Atlantic Ocean. The Atlantic coast of North America rapidly cooled, but the Pacific coast remained warmer than at present. The great ocean currents were in function and affected climate much as they do today.

61:3.10 (697.5) Mammalian life continued to evolve. Enormous herds of horses joined the camels on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this was truly the age of horses as well as of elephants. The horse's brain is next in animal quality to that of the elephant, but in one respect it is decidedly inferior, for the horse never fully overcame the deep-seated propensity to flee when frightened. The horse lacks the emotional control of the elephant, while the elephant is greatly handicapped by size and lack of agility. During this period an animal evolved which was somewhat like both the elephant and the horse, but it was soon destroyed by the rapidly increasing cat family.

61:3.11 (697.6) As Urantia is entering the so-called “horseless age,” you should pause and ponder what this animal meant to your ancestors. Men first used horses for food, then for travel, and later in agriculture and war. The horse has long served mankind and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61:3.12 (697.7) The biologic developments of this period contributed much toward the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an. In central Asia the true types of both the primitive monkey and the gorilla evolved, having a common ancestor, now extinct. But neither of these species is concerned in the line of living beings which were, later on, to become the ancestors of the human race.

61:3.13 (697.8) The dog family was represented by several groups, notably wolves and foxes; the cat tribe, by panthers and large saber-toothed tigers, the latter first evolving in North America. The modern cat and dog families increased in numbers all over the world. Weasels, martens, otters, and raccoons thrived and developed throughout the northern latitudes.

61:3.14 (698.1) Birds continued to evolve, though few

없었다. 파충류는 현대의 유형과--곤 뱀, 악어, 거북이와-- 비슷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다사{多事}했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코끼리와 말의 이 시대는 **중신세**{中新世}로 알려져 있다.

4. 최근의 대륙_육기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이때에는, **북 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육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됐다. 산맥이 형성됐고, 하천의 진로가 바뀌었으며,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10,000,000년 전에, 여러 대륙의 저지대에 국지적 퇴적층이 널리 퍼지는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 퇴적물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됐다. 이때에, **영국**, **벨지움**, 및 **불란서**를 포함해 **유럽**의 많은 지역은 아직 물 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 아프리카** 대부분을 덮었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이 산기슭과 호수 그리고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서 이뤄졌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띠었으며,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민물 호수가 **북 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있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샤스타**, **후드**, 및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造山}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차후에 있게 될 빙하시대가 돼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 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했다.

짧은 기간에,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이 다시 연결됐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했다. **북 아메리카**는 **남 아메리카** 및 **아시아**와 연결됐고, 동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다. **아시아**의,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영양, 및 곰이 **북 아메리카**로 들어왔고, 한편 **북 아메리카** 낙타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는 **오스트랄리아**와 **남 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했다.

대체로, 앞에 있었던 기간에 속하는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하고 퍼져 나갔다. 고양이 과 동물이 동물 생명체를 지배했고, 해양 생명체는 거의 답보 상태였다. 말들 중에서 다수는 여전히 세 개의 발톱을 지녔지만, 현대의 유형이 나타났으며; **아메리카** 낙타와 기린 모양의 낙타가 초원에서 말과 섞였다. 기린이 **아프리카**에 출현했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가졌다. **남 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그리고 **남 아메리**

marked changes occurred. Reptiles were similar to modern types — snakes, crocodiles, and turtles.

61:3.15 (698.2) Thus drew to a close a very eventful and interesting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This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is known as the *Miocene*.

4. THE RECENT CONTINENTAL-ELEVATION

STAGE

THE LAST GREAT MAMMALIAN

MIGRATION

61:4.1 (698.3) This is the period of preglacial land elevation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The land was greatly altered in topography. Mountain ranges were born, streams changed their courses, and isolated volcanoes broke out all over the world.

61:4.2 (698.4) 10,000,000 years ago began an age of widespread local land deposits on the lowlands of the continents, but most of these sedimentations were later removed. Much of Europe, at this time, was still under water, including parts of England, Belgium, and France, and the Mediterranean Sea covered much of northern Africa. In North America extensive depositions were made at the mountain bases, in lakes, and in the great land basins. These deposits average only about two hundred feet, are more or less colored, and fossils are rare. Two great fresh-water lakes exist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 Sierras were elevating; Shasta, Hood, and Rainier were beginning their mountain careers. But it was not until the subsequent ice age that North America began its creep toward the Atlantic depression.

61:4.3 (698.5) For a short time all the land of the world was again joined excepting Australia, and the last great world-wide animal migration took place. North America was connected with both South America and Asia, and there was a free exchange of animal life. Asiatic sloths, armadillos, antelopes, and bears entered North America, while North American camels went to China. Rhinoceroses migrated over the whole world except Australia and South America, but they were extinct in the Western Hemisphere by the close of this period.

61:4.4 (698.6) In general, the life of the preceding period continued to evolve and spread. The cat family dominated the animal life, and marine life was almost at a standstill. Many of the horses were still three-toed, but the modern types were arriving; llamas and giraffelike camels mingled with the horses on the grazing plains. The giraffe appeared in Africa, having just as long a neck then as now. In South America sloths, armadillos,

카 유형의 원시 원숭이들이 진화됐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메스토돈이라는 거대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했다.

5,000,000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고, **북 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나 말이 기원했던 대륙에서는, 홍인종(紅人種)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멸종됐다.

기온은 점차 하강했고; 육상 식물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의 온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북쪽의 지협들을 건너 이주하던 동물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으며; 나중에는, **북 아메리카**의 이 연결육지들이 가라앉았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와 **남 아메리카**를 연결하던 육지가 마침내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됐다. 이때 이후로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000만 년에 가까운 이 지속기간이 막을 내리게 됐지만,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鮮新世)로 알려져 있다.

5. 초기 빙하시대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대한 범위로 높이 솟았고, **북 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지역이 3만 피트 이상 융기했다. 전에는 이 북쪽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北極)의 물은 모두 증발되기 쉬웠으며, 그 지역에는 빙하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이렇게 육지가 융기함과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됐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북쪽에 있는 고지대(高地帶)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를 내리게 했다. 융기되고, 그에 따라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2만 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점이 됐다. 그리고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됐고, 눈 덩어리는 곧 고체로 변하여,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됐다.

이 기간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은,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었으며, 오늘날 발견되는 산악

anteaters, and the South American type of primitive monkeys evolved. Before the continents were finally isolated, those massive animals, the mastodons, migrated everywhere except to Australia.

61:4.5 (698.7) 5,000,000 years ago the horse evolved as it now is and from North America migrated to all the world. But the horse had become extinct on the continent of its origin long before the red man arrived.

61:4.6 (698.8) The climate was gradually getting cooler; the land plants were slowly moving southward. At first it was the increasing cold in the north that stopped animal migrations over the northern isthmuses; subsequently these North American land bridges went down. Soon afterwards the land connection between Africa and South America finally submerged, and the Western Hemisphere was isolated much as it is today. From this time forward distinct types of life began to develop in the Eastern and Western Hemispheres.

61:4.7 (699.1) And thus does this period of almost ten million years' duration draw to a close, and not yet has the ancestor of man appeared. This is the time usually designated as the *Pliocene*.

5. THE EARLY ICE AGE

61:5.1 (699.2) By the close of the preceding period the lands of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nd of northern Europe were highly elevated on an extensive scale, in North America vast areas rising up to 30,000 feet and more. Mild climates had formerly prevailed over these northern regions, and the arctic waters were all open to evaporation, and they continued to be ice-free until almost the close of the glacial period.

61:5.2 (699.3) Simultaneously with these land elevations the ocean currents shifted, and the seasonal winds changed their direction. These conditions eventually produced an almost constant precipitation of moisture from the movement of the heavily saturated atmosphere over the northern highlands. Snow began to fall on these elevated and therefore cool regions, and it continued to fall until it had attained a depth of 20,000 feet. The areas of the greatest depth of snow, together with altitude, determined the central points of subsequent glacial pressure flows. And the ice age persisted just as long as this excessive precipitation continued to cover these northern highlands with this enormous mantle of snow, which soon metamorphosed into solid but creeping ice.

61:5.3 (699.4) The great ice sheets of this period were all located on elevated highlands, not in

지대에 있지 않았다. 빙하 지대의 절반은 **북 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타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랄리아**는 남극의 얼음 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였다.

이 세계의 북쪽 지역에, 각 얼음 층의 활동과 관련해서 확장과 축소가 수십 차례 있었지만, 독립적이고 뚜렷하게 빙하가 침범한 것은 여섯 번이었다. **북 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됐고, 나중에는 세 중심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린랜드**는 완전히 뒤덮였고, **아이슬랜드**는 이동하는 얼음 층 밑에 완전히 묻혔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불란서**에 이르는 지역에 빙하가 퍼졌다.

2,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첫 빙하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됐고, 이 빙하가 북쪽에 있는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그곳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됐다. 중부에 있는 얼음 층이 남쪽으로 확장돼서 **캔사스**까지 이르렀으나;동부와 서부에 있는 빙하 중심지는, 그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다.

1,500,000년 전에, 거대한 첫 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눈이 **북 아메리카** 북동부 지역과 **그린랜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빙하의 두 번째 침공이었다.

이와 같은 처음 두 번의 빙하 침해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 동안 **북 아메리카**에는, 매스토돈, 털로 뒤덮인 맘모스, 말, 낙타, 사슴, 사향소, 들소, 땅나물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과와 개과 동물로 넘쳤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이때부터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족 가운데 대다수는 **북 아메리카**에서 멸종했다.

빙하기 이후로 지구에 있는 육상 및 수상 생명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만큼 온화했고, 아마 약간 더 따뜻했다. 빙하 현상은, 넓은 지역을 덮을 정도로 퍼지기는 했지만, 결국 국지적(局地的)인 현상이었다.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와,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의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젓 사운드**에서 **태평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노르웨이** 협만에서 **북해** 속으로 떨어지는 시대 사이에, 해안 지역의 기후는 현저히 변했다.

mountainous regions where they are found today. One half of the glacial ice was in North America, one fourth in Eurasia, and one fourth elsewhere, chiefly in Antarctica. Africa was little affected by the ice, but Australia was almost covered with the antarctic ice blanket.

61:5.4 (699.5) The northern regions of this world have experienced six separate and distinct ice invasions, although there were scores of advances and recessions associated with the activity of each individual ice sheet. The ice in North America collected in two and, later, three centers. Greenland was covered, and Iceland was completely buried beneath the ice flow. In Europe the ice at various times covered the British Isles excepting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and it overspread western Europe down to France.

61:5.5 (699.6) 2,000,000 years ago the first North American glacier started its southern advance. The ice age was now in the making, and this glacier consumed nearly one million years in its advance from, and retreat back toward, the northern pressure centers. The central ice sheet extended south as far as Kansas; the eastern and western ice centers were not then so extensive.

61:5.6 (699.7) 1,500,000 years ago the first great glacier was retreating northward. In the meantime, enormous quantities of snow had been falling on Greenland and o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nd ere long this eastern ice mass began to flow southward. This was the second invasion of the ice.

61:5.7 (699.8) These first two ice invasions were not extensive in Eurasia. During these early epochs of the ice age North America was overrun with mastodons, woolly mammoths, horses, camels, deer, musk oxen, bison, ground sloths, giant beavers, saber-toothed tigers, sloths as large as elephants, and many groups of the cat and dog families. But from this time forward they were rapidly reduced in numbers by the increasing cold of the glacial period. Toward the close of the ice age the majority of these animal species were extinct in North America.

61:5.8 (700.1) Away from the ice the land and water life of the world was little changed. Between the ice invasions the climate was about as mild as at present, perhaps a little warmer. The glaciers were, after all, local phenomena, though they spread out to cover enormous areas. The coastwise climate varied greatly between the times of glacial inaction and those times when enormous icebergs were sliding off the coast of Maine into the Atlantic, slipping out through Puget Sound into the Pacific, and thundering down Norwegian fiords into the North Sea.

6. 빙하시대의 원시인

이런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 있는 **인도**의 약간 서쪽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의 후손 가운데서, 시조(始祖)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작은 이 동물은 대개 뒷다리만 이용해서 걸어 다녔고,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생명체의 70대 후손 중에서, 새로운 상류 동물 집단이 **갑자기** 분화됐다. 크기와 키가 그 선조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증대된 두뇌 능력을 가진-- 이런 새로운 중간_포유동물이 만족스런 상태로 자리 잡게 됐을 때, 지극히 중대한 세 번째 돌연변이인 **영장류**(靈長類)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중간 포유동물 혈통 속에는 퇴화 현상이 나타나서, 유인원(類人猿)의 조상이 됐으며;그날 이후로 이런 인류계통은 점진적인 진화 과정에 들어간 반면, 유인원 부류는 그 상태로 남아 있거나 실제적인 퇴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1,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됐다. 진화하는 **영장류** 혈통에서 어떤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실제 조상인 두 명의 원시 인간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으며;그래서 너희의 초기 선조들이 자극적이고 고무적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란시아** 원주민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빙하기들 사이의 시기 동안에,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중해** 부근에 도착했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졌다. 서부 **유럽**에 있는 동굴에서,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의 잔해와 함께 인간의 뼈가 발견되는데,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 시기 동안에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음을 입증한다.

7. 계속되는 빙하기

빙하기 동안 내내 다른 활동도 진척됐지만, 얼음 층의 작용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못했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만큼 지형학적으로 그런 독자적인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다. 특이한 둥근 돌, 그리고 웅덩이, 호수, 치환된 암석, 및 바위 가루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은, 다른 자연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 층은 빙퇴구(氷堆丘)로 알려진,

6. PRIMITIVE MAN IN THE ICE AGE

61:6.1 (700.2) The great event of this glacial period was the evolution of primitive man. Slightly to the west of India, on land now under water and among the offspring of Asiatic migrants of the older North American lemur types, the dawn mammals *suddenly* appeared. These small animals walked mostly on their hind legs, and they possessed large brains in proportion to their size and in comparison with the brains of other animals. In the seventieth generation of this order of life a new and higher group of animals *suddenly* differentiated. These new mid-mammals — almost twice the size and height of their ancestors and possessing proportionately increased brain power — had only well established themselves when the Primates, the third vital mutation, *suddenly* appeared. (At this same time, a retrograde development within the mid-mammal stock gave origin to the simian ancestry; and from that day to this the human branch has gone forward by progressive evolution, while the simian tribes have remained stationary or have actually retrogressed.)

61:6.2 (700.3) 1,000,000 years ago Urantia was registered as an *inhabited world*. A mutation within the stock of the progressing Primates *suddenly* produced two primitive human beings, the actual ancestors of mankind.

61:6.3 (700.4) This event occurred at abou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third glacial advance; thus it may be seen that your early ancestors were born and bred in a stimulating, invigorating, and difficult environment. And the sole survivors of these Urantia aborigines, the Eskimos, even now prefer to dwell in frigid northern climes.

61:6.4 (700.5) Human beings were not pres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until near the close of the ice age. But during the interglacial epochs they passed westward around the Mediterranean and soon overran the continent of Europe. In the caves of western Europe may be found human bones mingled with the remains of both tropic and arctic animals, testifying that man lived in these regions throughout the later epochs of the advancing and retreating glaciers.

7. THE CONTINUING ICE AGE

61:7.1 (700.6) Throughout the glacial period other activities were in progress, but the action of the ice overshadows all other phenomena in the northern latitudes. No other terrestrial activity leaves such characteristic evidence on the topography. The distinctive boulders and surface cleavages, such as potholes, lakes, displaced stone, and rock flour, are to be found in connection with no other phenomenon in nature. The ice is also responsible

완만하게 솟거나 지표면의 굽이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빙하가 전진할 때, 그것이 강줄기를 바꾸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빙하는, 이동된 흔적--곧 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氷堆石)들--만 뒤에 남겨놓았다. 이 유동 현상들, 특히 바닥의 빙퇴석은, **북 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었고,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75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중부와 동부의 얼음 지대를 연결하는, 네 번째 빙하 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됐고; 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바니아** 중부까지 확장됐다.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 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했고, 한편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 층의 확장이 멈췄다.

500,000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에 인류의 진화 과정에 새로운 진보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원래의 인간 혈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한 세대 안에서, 여섯 가지 색깔의 인종이 번이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때 **행성 왕자**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가 세 개의 얼음 중심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아무튼, 동쪽 돌출부는 **세인트 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됐을 뿐이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약간 확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중부에 있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돼서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었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 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했다.

2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의 빙하 현상이 시작됐다. 북쪽에 있는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쪽 얼음 지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였다.

이 침해 기간에, 세 개의 거대한 얼음 층이 하나의 방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고, 서쪽에 있는 모든 산이 이 빙하 활동에 동참했다. **북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 가운데,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 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지역에서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했고, **북 아메리카**는 가장 낮은 기온을 체험하게 됐다.

2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확장되는 동안, **유란시아**에서는 여러 사건의 진행과 많이 관련되는 어떤 일--곧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다.

1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됐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으며; 중

for those gentle swells, or surface undulations, known as drumlins. And a glacier, as it advances, displaces rivers and changes the whole face of the earth. Glaciers alone leave behind them those telltale drifts — the ground, lateral, and terminal moraines. These drifts, particularly the ground moraines, extend from the eastern seaboard north and westward in North America and are found in Europe and Siberia.

61:7.2 (701.1) 750,000 years ago the fourth ice sheet, a union of the North American central and eastern ice fields, was well on its way south; at its height it reached to southern Illinois, displacing the Mississippi River fifty miles to the west, and in the east it extended as far south as the Ohio River and central Pennsylvania.

61:7.3 (701.2) In Asia the Siberian ice sheet made its southernmost invasion, while in Europe the advancing ice stopped just short of the mountain barrier of the Alps.

61:7.4 (701.3) 500,000 years ago, during the fifth advance of the ice, a new development accelerated the course of human evolution. Suddenly and in one generation the six colored races mutated from the aboriginal human stock. This is a doubly important date since it also marks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61:7.5 (701.4) In North America the advancing fifth glacier consisted of a combined invasion by all three ice centers. The eastern lobe, however, extended only a short distance below the St. Lawrence valley, and the western ice sheet made little southern advance. But the central lobe reached south to cover most of the State of Iowa. In Europe this invasion of the ice was not so extensive as the preceding one.

61:7.6 (701.5) 250,000 years ago the sixth and last glaciation began.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northern highlands had begun to sink slightly, this was the period of greatest snow deposition on the northern ice fields.

61:7.7 (701.6) In this invasion the three great ice sheets coalesced into one vast ice mass, and all of the western mountains participated in this glacial activity. This was the largest of all ice invasions in North America; the ice moved south over fifteen hundred miles from its pressure centers, and North America experienced its lowest temperatures.

61:7.8 (701.7) 200,000 years ago, during the advance of the last glacier, there occurred an episode which had much to do with the march of events on Urantia — the Lucifer rebellion.

61:7.9 (701.8) 150,000 years ago the sixth and last glacier reached its farthest points of southern extension, the western ice sheet crossing just over the Canadian border; the central coming down into

부의 얼음 층은, **캔사스**, **미조리**, 및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 동쪽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돼서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혀 모양, 즉 얼음 돌출부들을 앞으로 밀어낸 빙하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북 아메리카**의 **5대호** 체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유란시아** 지질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발달 단계를 매우 정확하게 추론했고, 이런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허드슨** 계곡에, 마지막으로 북쪽 길을 통해서 **세인트 로렌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했다. **5대호**가 현재의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기 37,000년이 지났다.

1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 극지방의 거대한 얼음 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축적된 얼음 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한, 그리고 장차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海流}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른 빙하기가 이뤄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는 10만 년 동안 확장됐고, 북쪽으로 완전히 퇴각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다. 5만 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온화한 지역들이 얼음 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

혹독한 빙하시대로 인해,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했다. 많은 종류는,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 층에 대처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해서, 심하게 도태됐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온 땅에 퍼진 동물 중에는, 곰, 들소, 순록, 사향소, 맘모스, 및 매스토돈 등이 있었다.

맘모스는 개활{開豁} 목초지를 찾았지만, 매스토돈은 삼림 지역으로 보호된 번두리를 선호했다. 맘모스는 상당히 후기까지,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했으며; **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는 털로 뒤덮이게 됐다. 후대에 백인종이 들소를 죽인 것처럼, 매스토돈은 홍인종에게 멸종되기 전까지 **북 아메리카**에서 살았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가 작용하는 동안, 말, 맥, 아메리카낙타,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사라졌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및 캐피바라가 **남 아메리카**로부터 북상해서 자리를 메웠다.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뤄진 생명체 이주는 식물과 동물을 특이하게 혼합시켰고,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게 됐는데, 그 것들은 빙하로 인해 파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Kansas, Missouri, and Illinois; the eastern sheet advancing south and covering the greater portion of Pennsylvania and Ohio.

61:7.10 (701.9) This is the glacier that sent forth the many tongues, or ice lobes, which carved out the present-day lakes, great and small. During its retreat the North American system of Great Lakes was produced. And Urantian geologists have very accurately deduced the various stages of this development and have correctly surmised that these bodies of water did, at different times, empty first into the Mississippi valley, then eastward into the Hudson valley, and finally by a northern route into the St. Lawrence. It is thirty-seven thousand years since the connected Great Lakes system began to empty out over the present Niagara route.

61:7.11 (702.1) 100,000 years ago, during the retreat of the last glacier, the vast polar ice sheets began to form, and the center of ice accumulation moved considerably northward. And as long as the polar regions continue to be covered with ice, it is hardly possible for another glacial age to occur, regardless of future land elevations or modification of ocean currents.

61:7.12 (702.1) This last glacier was one hundred thousand years advancing, and it required a like span of time to complete its northern retreat. The temperate regions have been free from the ice for a little over fifty thousand years.

61:7.13 (702.1) The rigorous glacial period destroyed many species and radically changed numerous others. Many were sorely sifted by the to-and-fro migration which was made necessary by the advancing and retreating ice. Those animals which followed the glaciers back and forth over the land were the bear, bison, reindeer, musk ox, mammoth, and mastodon.

61:7.14 (702.1) The mammoth sought the open prairies, but the mastodon preferred the sheltered fringes of the forest regions. The mammoth, until a late date, ranged from Mexico to Canada; the Siberian variety became wool covered. The mastodon persisted in North America until exterminated by the red man much as the white man later killed off the bison.

61:7.15 (702.1) In North America, during the last glaciation, the horse, tapir, llama, and saber-toothed tiger became extinct. In their places sloths, armadillos, and water hogs came up from South America.

61:7.16 (702.1) The enforced migration of life before the advancing ice led to an extraordinary commingling of plants and of animals, and with the retreat of the final ice invasion, many arctic species of both plants and animals were left stranded high upon certain mountain peaks,

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된 이 식물과 동물이, 유럽에 있는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 그리고 심지어 북 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도 오늘날 발견된다.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洪積世)라고 불리며, 20만 년의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했다.

35,000년 전에, 지구의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빙하기(大氷河期)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미심장한 이유는,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와 비슷하며, 아담의 섭리 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완신세(完新世) 기간, 즉 빙하기 이후 시대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유류 생명체가 발생된 때로부터 빙하기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거의 5,000만 년에 걸친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현재의-- 마지막 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新生代) 또는 근세(近世) 시대라고 알려져 있다.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whither they had journeyed to escape destruction by the glacier. And so, today, these dislocated plants and animals may be found high up on the Alps of Europe and even on the Appalachian Mountains of North America.

61:7.17 (702.1) The ice age is the last completed geologic period, the so-called *Pleistocene*, over two million years in length.

61:7.18 (702.1) 35,000 years ago marks the termination of the great ice age excepting in the polar regions of the planet. This date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approximates the arrival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the beginning of the Adamic dispensation, roughly corresponding to the beginning of the *Holocene* or postglacial period.

61:7.19 (702.1) This narrative, extending from the rise of mammalian life to the retreat of the ice and on down to historic times, covers a span of almost fifty million years. This is the last — the current — geologic period and is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Cenozoic* or recent-times era.

61:7.20 (702.1) [Sponsored by a Resident Life Carrier.]

제62편. 초기 사람의 시조 인종

⇨ 061

유란시아 책

06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2편
초기 사람의 시조 인종

섹션

소개

1.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2. 시조 포유동물
3. 중간_포유동물
4. 영장류
5. 최초의 인간
6. 인간 정신의 진화
7. 인간거주 세계로서 인정받음

소개

약 100만 년 전에, 태반{胎盤}을 가진 포유동물인 여우원숭이 유형의 초기 혈통에서 유래된, 세 차례의 연속적이고 갑작스런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났다. 이 초기 여우원숭이들의 우세한 유전인자는, 서부{西部} 계통, 즉 후기 **아메리카** 계통의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직계 혈통이 형성되기 전에, 이 종족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중부 생명체 이식{移植}의 기여로 보강됐다. 동부 생명체 집단은 인간 종족의 실제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1.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인간 종족의 선조로 간주되는 초기 여우원숭이는, 그 당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서 살던, 예전에 존재하던 긴팔원숭이 및 꼬리 없는 원숭이 부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현대 유형의 여우원숭이 후손과도 관계없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같은 조상에서 발생했고 오래 전에 멸종됐다.

PAPER 62

THE DAWN RACES OF EARLY MA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arly Lemur Types
2. The Dawn Mammals
3. The Mid-Mammals
4. The Primates
5. The First Human Beings
6. Evolution of the Human Mind
7. Recognition as an Inhabited World

INTRODUCTION

62:0.1 (703.1) ABOUT one million years ago the immediate ancestors of mankind made their appearance by three successive and sudden mutations stemming from early stock of the lemur type of placental mammal. The dominant factors of these early lemurs were derived from the western or later American group of the evolving life plasm. But before establishing the direct line of human ancestry, this strain was reinforced by contributions from the central life implantation evolved in Africa. The eastern life group contributed little or nothing to the actual production of the human species.

1. THE EARLY LEMUR TYPES

62:1.1 (703.2) The early lemurs concerned in the ancestry of the human species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e-existent tribes of gibbons and apes then living in Eurasia and northern Africa, whose progeny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ime. Neither were they the offspring of the modern type of lemur, though springing from an ancestor common to both but long since extinct.

이런 초기 여우원숭이가 **서반구**에서 진화된 반면, 인류의 직계 포유류 조상은, 남서부 **아시아**, 즉 중부 생명체 이식(移植)의 원래 지역이지만 동부 지역의 경계선에서 발생했다. 수백만 년 전에, **북 아메리카** 유형의 여우원숭이가 **베링 반도**(半島)를 지나서 서쪽으로 이주했으며,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이주하던 이 부류는, 당시에 확장돼 있었던 **지중해**와 **인도** 반도의 융기되는 산악 지대 사이에 있는, 건강에 적합한 지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됐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육지에서, 서로 좋아하는 다른 종족들과 결합했고, 그리하여 인간 종족의 조상을 형성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악 지대 남서쪽에 있는 **인도** 해안선이 점차 침수됐고, 이 지역의 생명체는 완전히 고립됐다. **메소포타미아** 반도, 즉 **페르시아** 반도인 이곳에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고,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확장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잘려나갔다. 당시에 거의 낙원 같은 쾌적한 지역에서, 그리고 포유류인 이 여우원숭이 유형의 우수한 후손들로부터, 중대한 두 종족이 발생했는데, 현대의 유인원 류(類)와 오늘날의 인간 종족이다.

2. 시조 포유동물

100만 년보다 약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始祖) 포유동물, 즉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으로서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의 직계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크기가 3피트에 이르는 작은 피조물이었으며; 습관적으로 뒷다리를 사용해서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들은 털이 많고 민첩했으며 원숭이처럼 소리를 냈지만, 유인원 류(類)와는 달리 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볼 수 있는 원시 형태의 엄지손가락뿐 아니라, 움켜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긴 발가락을 지녔다. 이때부터 선행인류(先行人類) 종족들은,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상태로 연속적으로 발전된 반면, 큰 발가락으로 잡는 능력은 점점 잃게 됐다. 후대의 원숭이 류는, 잡을 수 있는 큰 발가락은 유지했지만, 인간 유형의 엄지손가락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세 살 또는 네 살이 됐을 때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었다. 대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새로운 이 종족에 속하는 것들은,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비슷한 크기의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후대의 원시인의 특징에 해당

62:1.2 (703.3) While these early lemurs evolved in the Western Hemisp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 mammalian ancestry of mankind took plac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original area of the central life implantation but on the borders of the eastern regions. Several million years ago the North American type lemurs had migrated westward over the Bering land bridge and had slowly made their way southwestward along the Asiatic coast. These migrating tribes finally reached the salubrious region lying between the then expanded Mediterranean Sea and the elevating mountainous regions of the Indian peninsula. In these lands to the west of India they united with other and favorable strains, thus establishing the ancestry of the human race.

62:1.3 (703.4)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seacoast of India southwest of the mountains gradually submerged, completely isolating the life of this region. There was no avenue of approach to, or escape from, this Mesopotamian or Persian peninsula except to the north, and that was repeatedly cut off by the southern invasions of the glaciers. And it was in this then almost paradisiacal area, and from the superior descendants of this lemur type of mammal, that there sprang two great groups, the simian tribes of modern times and the present-day human species.

2. THE DAWN MAMMALS

62:2.1 (703.5) A little more than one million years ago the Mesopotamian dawn mammals, the direct descendants of the North American lemur type of placental mammal, *suddenly* appeared. They were active little creatures, almost three feet tall; and while they did not habitually walk on their hind legs, they could easily stand erect. They were hairy and agile and chattered in monkeylike fashion, but unlike the simian tribes, they were flesh eaters. They had a primitive opposable thumb as well as a highly useful grasping big toe. From this point onward the prehuman species successively developed the opposable thumb while they progressively lost the grasping power of the great toe. The later ape tribes retained the grasping big toe but never developed the human type of thumb.

62:2.2 (704.1) These dawn mammals attained full growth when three or four years of age, having a potential life span, on the average, of about twenty years. As a rule offspring were born singly, although twins were occasional.

62:2.3 (704.2) The members of this new species had the largest brains for their size of any animal that had theretofore existed on earth. They experienced many of the emotions and shared

하는 여러 본능을 지녔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어떤 주어진 일이든지 성공했다 싶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 보였다. 식욕과 성욕이 적당히 발전했고, 조잡한 형태로 구애{求愛}하고 짝을 골라잡는 것을 통해서 성적{性的}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격렬하게 싸우려 했고, 가족 연합체 안에서는 매우 부드러웠으며, 수치심과 후회의 감정에 가까운 자기_비하{卑下} 감각을 소유했다. 그들은 매우 애정이 깊었고, 배우자에게 감동적으로 충성스러웠지만,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에는 새로운 짝을 선택하곤 했다.

그들은 키가 작았으며, 서식하는 숲에 위험이 다쳐움을 알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정신을 갖고 있어서, 두려움이 비상하게 개발되고 지혜로운 예방 대책을 갖게 되어, 살아남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 한 예로 그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음으로써, 땅 위 생활의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인류의 두려워하는 성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전에 나타났던 어떤 것들보다 부족{部族} 성향이 더 발달했다. 그들은 군집성{群集性}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추구하던 중에, 어떤 경로든지 동요했을 때에는 지나치게 호전적이었고, 대단히 화났을 때에는 불같은 기질을 나타냈다. 아무튼 그것들의 호전적인 본성은 좋은 용도로 사용됐는데; 우수한 무리들은 열등한 이웃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선택적으로 살아남음으로써 종족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그것들은 오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있는 작은 피조 생명체를 지배하게 됐고, 육식을 하지 않는 원숭이 모양의 오래된 부류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공격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 동물은, **지중해** 반도에서 1,000년 이상 번식해 퍼져 있었고, 육체적 유형과 전반적 사고력이 계속 발전했다. 이 새로운 부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여우원숭이 조상에서 기원된 이래, 꼭 70세대가 지나자,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다--**유란시아**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 필수적인 그 다음 단계의 조상이 갑자기 파생됐다.

3. 중간_포유동물

시조 포유동물이 발전하던 초기에, 나무 꼭대기에 사는 민첩한 이 피조물 중에서, 우세한 한 쌍으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었다. 그들은 조상에 비해서 정말로 잘생긴 작은 피조물이었다. 그들의 몸에는 털이 거의 없었지만, 온화하고 일정한 기후에서 사는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numerous instincts which later characterized primitive man, being highly curious and exhibiting considerable elation when successful at any undertaking. Food hunger and sex craving were well developed, and a definite sex selection was manifested in a crude form of courtship and choice of mates. They would fight fiercely in defense of their kindred and were quite tender in family associations, possessing a sense of self-abasement bordering on shame and remorse. They were very affectionate and touchingly loyal to their mates, but if circumstances separated them, they would choose new partners.

62:2.4 (704.3) Being small of stature and having keen minds to realize the dangers of their forest habitat, they developed an extraordinary fear which led to those wise precautionary measures that so enormously contributed to survival, such as their construction of crude shelters in the high treetops which eliminated many of the perils of ground life. The beginning of the fear tendencies of mankind more specifically dates from these days.

62:2.5 (704.4) These dawn mammals developed more of a tribal spirit than had ever been previously exhibited. They were, indeed, highly gregarious but nevertheless exceedingly pugnacious when in any way disturbed in the ordinary pursuit of their routine life, and they displayed fiery tempers when their anger was fully aroused. Their bellicose natures, however, served a good purpose; superior groups did not hesitate to make war on their inferior neighbors, and thus, by selective survival, the species was progressively improved. They very soon dominated the life of the smaller creatures of this region, and very few of the older noncarnivorous monkeylike tribes survived.

62:2.6 (704.5) These aggressive little animals multiplied and spread over the Mesopotamian peninsula for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constantly improving in physical type and general intelligence. And it was just seventy generations after this new tribe had taken origin from the highest type of lemur ancestor that the next epoch-making development occurred — the sudden differentiation of the ancestors of the next vital step in the evolution of human beings on Urantia.

3. THE MID-MAMMALS

62:3.1 (704.6) Early in the career of the dawn mammals, in the treetop abode of a superior pair of these agile creatures, twins were born, one male and one female. Compared with their ancestors, they were really handsome little creatures. They had little hair on their bodies, but this was no disability as they lived in a warm and equable climate.

이 새끼들은 자라서 4피트 조금 넘는 키가 됐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부모보다 컸으며, 비교적 긴 다리와 짧은 팔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완전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엄지를 가졌고, 현재 인간의 엄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거의 후대 인간 종족만큼 걷기에 편한 발을 가졌다.

그들의 뇌(腦)는 인간에 비해 열등(劣等)하고 작았지만, 그들의 조상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했고 훨씬 컸다. 그 쌍둥이는 일찍부터 우수한 사고력을 나타냈고, 곧 전체 시조 포유동물 부족의 우두머리가 됐으며, 원시 형태의 사회 조직, 그리고 미숙하지만 실용적인 노동 분할을 가르쳤다. 이 남매는 짝을 맺었고, 곧 자신과 거의 비슷한 21명의 자식을 낳아 집단을 이뤘으며, 키는 모두 4피트를 넘었고, 조상 종족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새로 나타난 이 무리가 중간_포유동물의 핵심을 형성했다.

새로 나타나고 뛰어난 이 무리의 숫자가 크게 불어났을 때,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격렬한 투쟁이 끝났을 때에는,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전에 있었던 조상 종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숫자는 적지만 힘이 세고 영리한, 파생된 이 종(種)이 그들의 조상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됐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만 5천 년(600세대) 동안, 이 피조물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전에 있던 거대하고 광폭한 모든 동물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지역에 사는 큰 짐승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고, 고양이 과의 비교적 큰 종들, 즉 사자와 호랑이 종류는, 지구 표면 중에서 특이하게 보호되고 구석진 이곳으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중간_포유동물은 점점 용맹스럽게 됐고, 창조물 중에서 그들과 비슷한 부류 전체를 정복했다.

선조 종들과 비교할 때, 중간_포유동물은 모든 면에서 진보했다. 그들의 잠재 수명도 비교적 길었는데, 25년 정도였다. 새로운 이 종들 가운데서 초보적인 몇몇 인간적 특징이 나타났다. 그들의 조상이 보여줬던 타고난 성향들 외에, 이 중간_포유동물은 어떤 불쾌한 상황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저장(貯藏)하는 본능을 뚜렷이 소유했으며; 나중에 먹기 위해서 양식(糧食)을 감출 수 있었고,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로서 특정한 유형의 둥근 돌이나 부드러운 둥근 자갈을 수집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이런 중간_포유동물은 처음으로 분명한 건축 성향을 나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지은 그들의 집과, 구멍이 많은 지하 대피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잘 나타났으며; 나무 위와 땅 밑에 동

62:3.2 (705.1) These children grew to be a little over four feet in height. They were in every way larger than their parents, having longer legs and shorter arms. They had almost perfectly opposable thumbs, just about as well adapted for diversified work as the present human thumb. They walked upright, having feet almost as well suited for walking as those of the later human races.

62:3.3 (705.2) Their brains were inferior to, and smaller than, those of human beings but very superior to, and comparatively much larger than, those of their ancestors. The twins early displayed superior intelligence and were soon recognized as the heads of the whole tribe of dawn mammals, really instituting a primitive form of social organization and a crude economic division of labor. This brother and sister mated and soon enjoyed the society of twenty-one children much like themselves, all more than four feet tall and in every way superior to the ancestral species. This new group formed the nucleus of the mid-mammals.

62:3.4 (705.3) When the numbers of this new and superior group grew great, war, relentless war, broke out; and when the terrible struggle was over, not a single individual of the pre-existent and ancestral race of dawn mammals remained alive. The less numerous but more powerful and intelligent offshoot of the species had survived at the expense of their ancestors.

62:3.5 (705.4) And now, for almost fifteen thousand years (six hundred generations), this creature became the terror of this part of the world. All of the great and vicious animals of former times had perished. The large beasts native to these regions were not carnivorous, and the larger species of the cat family, lions and tigers, had not yet invaded this peculiarly sheltered nook of the earth's surface. Therefore did these mid-mammals wax valiant and subdue the whole of their corner of creation.

62:3.6 (705.5) Compared with the ancestral species, the mid-mammals were an improvement in every way. Even their potential life span was longer, being about twenty-five years. A number of rudimentary human traits appeared in this new species. In addition to the innate propensities exhibited by their ancestors, these mid-mammals were capable of showing disgust in certain repulsive situations. They further possessed a well-defined hoarding instinct; they would hide food for subsequent use and were greatly given to the collection of smooth round pebbles and certain types of round stones suitable for defensive and offensive ammunition.

62:3.7 (705.6) These mid-mammals were the first to exhibit a definite construction propensity, as shown in their rivalry in the building of both treetop homes and their many-tunneled subterranean retreats; they were the first species of mammals ever to

시에 집을 지음으로 안전을 도모했던 최초의 포유동물 중에 해당됐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무 위를 거주지로 삼지 않았는데, 낮에는 땅에 있었고 밤에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잤다.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해, 결국에는 심각한 양식 경쟁과 성적(性的) 경쟁이 일어나게 됐으며, 모든 것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거의 모든 종이 멸절될 정도가 됐다. 이런 투쟁은, 100마리도 안 되는 한 집단이 남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평화가 다시 이뤄졌고, 자기들만 살아남게 된 이 부족은, 나무 위에 새 잠자리를 마련했으며, 정상적이고 다소_평화로운 생존을 재개하게 됐다.

너희의 선행인류 조상이 무엇 때문에 때때로 단절 현상을 보이는지, 너희는 거의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온 인류의 조상인 고대의 개구리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 2인치 짧게 뛰었다라면, 진화의 전 과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시조_포유동물 중(種) 중에서 여우원숭이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어미는, 더 발전된 새로운 포유류의 조상을 낳기 전에, 다섯 차례 이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영장류** 쌍둥이를 낳게 될 어미가 자고 있던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였다. 중간_포유동물인 이 동물 쌍은, 둘 다 깊은 충격을 받았고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일곱 마리 새끼 중에서 세 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벼락으로 죽었다. 진화하던 이 동물은 미신에 사로잡힌 듯했다. 나무 꼭대기의 집이 부서진 이 쌍은, 중간_포유동물 중 중에서 더 많이 진보된 무리의 실질적 지도자였으며; 더 발달된 지능을 가진 무리들을 포함하여 반 이상의 부족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지역으로부터 2마일 가량 이동했고, 새로운 나무 꼭대기의 거주지들과 땅 밑의 은신처를--즉 갑작스런 위협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를--짓기 시작했다.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련한 체험을 가진 이 쌍은, 집을 다 짓고 난 직후에, 자랑스런 쌍둥이를 낳게 됐고, 그것들은 그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동물이었었는데, 선행인류의 진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를 제공하는, **영장류**라는 최초의 새로운 종(種)이었기 때문이다.

이 **영장류** 쌍둥이의 탄생과 같은 시기에, 다른 쌍--곧 중간_포유동물 부족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컷과 암컷,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열등한 쌍--역시 쌍둥이를 낳았다.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의 이 쌍둥이는 정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먹이를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므로 짐승을 잡는 일에 곧 모든 흥미를 잃게 됐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쌍둥이는 오늘날 유인원 족속의 근원이 됐다. 그것들의 후손은, 온화한 기후와 열대성 과일이 풍성한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아 이동했고, 거기서 그들은 초기 유형의 긴팔원숭이 및 꼬리

provide for safety in both arboreal and underground shelters. They largely forsook the trees as places of abode, living on the ground during the day and sleeping in the treetops at night.

62:3.8 (705.7) As time passed, the natural increase in numbers eventually resulted in serious food competition and sex rivalry, all of which culminated in a series of internecine battles that nearly destroyed the entire species. These struggles continued until only one group of less than one hundred individuals was left alive. But peace once more prevailed, and this lone surviving tribe built anew its treetop bedrooms and once again resumed a normal and semipeaceful existence.

62:3.9 (705.8) You can hardly realize by what narrow margins your prehuman ancestors missed extinction from time to time. Had the ancestral frog of all humanity jumped two inches less on a certain occasion, the whole course of evolution would have been markedly changed. The immediate lemurlike mother of the dawn-mammal species escaped death no less than five times by mere hairbreadth margins before she gave birth to the father of the new and higher mammalian order. But the closest call of all was when lightning struck the tree in which the prospective mother of the Primates twins was sleeping. Both of these mid-mammal parents were severely shocked and badly burned; three of their seven children were killed by this bolt from the skies. These evolving animals were almost superstitious. This couple whose treetop home had been struck were really the leaders of the more progressive group of the mid-mammal species; and following their example, more than half the tribe, embracing the more intelligent families, moved about two miles away from this locality and began the construction of new treetop abodes and new ground shelters — their transient retreats in time of sudden danger.

62:3.10 (706.1) So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home, this couple, veterans of so many struggles, found themselves the proud parents of twins, the most interesting and important animals ever to have been born into the world up to that time, for they were the first of the new species of *Primates* constituting the next vital step in prehuman evolution.

62:3.11 (706.2) Contemporaneously with the birth of these Primates twins, another couple — a peculiarly retarded male and female of the mid-mammal tribe, a couple that wer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inferior — also gave birth to twins. These twins, one male and one female, were indifferent to conquest; they were concerned only with obtaining food and, since they would not eat flesh, soon lost all interest in seeking prey. These retarded twins became the founders of the modern simian tribes. Their descendants sought the warmer southern regions with their mild climates

없는 원숭이와 섞인 것을 제외하고는 종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됐으며, 결국 크게 열등한 상태가 됐다.

그리하여,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_포유동물, 즉 그 부족으로부터 동시에 태어났고, 나중에 서로 분리된 두 쌍의 쌍둥이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즉 열등한 쌍은 현대 유형의 원숭이, 개코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로 변했고; 우수한 쌍은 사람으로 진화하는 향상되는 계통으로 계속 발전했다는 점-- 외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의 사람과 유인원은 같은 유(類)와 종에서 유래했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사람**의 조상은 이 중간_포유동물 부족 가운데 선택돼서 남은 자의 우세한 종족으로부터 연유했으며; 반면에 (선재{先在}하던, 여우원숭이, 긴팔원숭이, 꼬리 없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다른 동물들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현대 유인원은 중간_포유동물 무리 중에서 가장 열등한 한 쌍의 후손으로부터 연유했는데, 이 쌍은 그들 부족 간에 마지막 전투가 격렬하던 동안, 2주 이상 지하에 있는 양식 보관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전쟁 상태가 모두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다.

4. 영장류

암 수 한 쌍의 우수한 쌍둥이, 즉 중간_포유동물 부족을 지도하던 두 동물이 태어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동물 새끼들은 특이한 종류에 속했는데; 부모보다도 몸에 털이 적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서서 걷기를 고집했다. 그들의 조상은 뒷다리로 걷기 위해서 그때마다 배워야 했지만, 이 **영장류**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다. 그들의 키는 5피트를 약간 넘었고, 같은 부족의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머리가 더 크게 자랐다. 신호와 소리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지만, 새로운 이 신호들을 그 동족에게는 결코 이해시킬 수 없었다.

약 열네 살이 됐을 때, 그들은 그 부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부족을 이겼으며, 새로운 **영장류** 종(種)을 확립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 동물을 **영장류**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한 표현인데, 그들은 인간 가족 자체가 태어나게 한, 직접적이고도 바로 연결된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장류**는, 당시에 남쪽 바다로 뻗어나온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해안에서 한 지역을 점유하게 됐으며, 반면에 비교적 지능이 낮고 가깝게 관계된 부족들은 반도 끝 부분과 동부 해안선 위쪽에서 살았다.

and an abundance of tropical fruits, where they have continued much as of that day except for those branches which mated with the earlier types of gibbons and apes and have greatly deteriorated in consequence.

62:3.12 (706.3) And so it may be readily seen that man and the ape are related only in that they sprang from the mid-mammals, a tribe in which there occurred the contemporaneous birth and subsequent segregation of two pairs of twins: the inferior pair destined to produce the modern types of monkey, baboon, chimpanzee, and gorilla; the superior pair destined to continue the line of ascent which evolved into man himself.

62:3.13 (706.4) Modern man and the simians did spring from the same tribe and species but not from the same parents. Man's ancestors are descended from the superior strains of the selected remnant of this mid-mammal tribe, whereas the modern simians (excepting certain pre-existent types of lemurs, gibbons, apes, and other monkeylike creatures) are the descendants of the most inferior couple of this mid-mammal group, a couple who only survived by hiding themselves in a subterranean food-storage retreat for more than two weeks during the last fierce battle of their tribe, emerging only after the hostilities were well over.

4. THE PRIMATES

62:4.1 (706.5) Going back to the birth of the superior twins, one male and one female, to the two leading members of the mid-mammal tribe: These animal babies were of an unusual order; they had still less hair on their bodies than their parents and, when very young, insisted on walking upright. Their ancestors had always learned to walk on their hind legs, but these Primates twins stood erect from the beginning. They attained a height of over five feet, and their heads grew larger in comparison with others among the tribe. While early learn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means of signs and sounds, they were never able to make their people understand these new symbols.

62:4.2 (707.1) When about fourteen years of age, they fled from the tribe, going west to raise their family and establish the new species of Primates. And these new creatures are very properly denominated *Primates* since they were the direct and immediate animal ancestors of the human family itself.

62:4.3 (707.2) Thus it was that the Primates came to occupy a region on the west coast of the Mesopotamian peninsula as it then projected into the southern sea, while the less intelligent and closely related tribes lived around the peninsula point and up the eastern shore line.

영장류는 그들의 조상인 중간_포유동물보다 더 인간에 가까웠고, 동물과는 더 거리가 멀었다. 새로운 이 종(種)의 골격 구조는 원시 인간 종족의 것과 매우 흡사했다. 인간 유형의 손과 발이 다 발달된 상태였으며, 이 피조물은 걸을 수 있었고, 후대의 인간 후손과 마찬가지로 뛸 수도 있었다. 그들은 예전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안전 대책으로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지만, 대체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점점 더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타고난 두뇌 능력이 많이 개발됐지만, 진정한 인간이라고 부를만한 정신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감정적인 본성에서는 **영장류**가 조상들과 거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의 모든 성향(性向)은 인간의 경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것들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수한 동물이었으며, 열 살 정도가 되면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자연수명은 40년 정도였다. 즉,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기간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원시 시대에 자연수명을 다 사는 동물은 극히 드물었으며;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너무 격렬했다.

그리고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기원된 후로 약 21,000년에 걸쳐서, 거의 900세대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영장류**로부터 두드러진 모습의 두 피조물이 갑자기 태어났고, 최초의 진짜 인간이 됐다.

그리하여,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으로 부터 발생된 시조 포유동물에서 중간_포유동물이 기원됐고, 다시 이 중간_포유동물은 우수한 **영장류**를 발생시켰으며, **영장류**는 원시 인간 종족의 직계 조상이 됐다. **영장류** 부족들은 사람의 진화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비범한 이 부족들은 5천 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멸종됐다.

5. 최초의 인간

서기 1934년을 기점으로, 꼭 993,419년 전에 두 명의 최초 인간이 태어났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이 두 피조물은 진짜 인간이었다. 그들은 여러 조상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지녔고, 그들의 다리는 오늘날의 인간 종족과 똑같이 완전했다. 그들은 기어 다니지 않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없어졌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에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았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곰처럼 나무 등치를 잡고 올라갔다.

62.4.4 (707.3) The Primates were more human and less animal than their mid-mammal predecessors. The skeletal proportions of this new species we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primitive human races. The human type of hand and foot had fully developed, and these creatures could walk and even run as well as any of their later-day human descendants. They largely abandoned tree life, though continuing to resort to the treetops as a safety measure at night, for like their earlier ancestors, they were greatly subject to fear. The increased use of their hands did much to develop inherent brain power, but they did not yet possess minds that could really be called human.

62.4.5 (707.4) Although in emotional nature the Primates differed little from their forebears, they exhibited more of a human trend in all of their propensities. They were, indeed, splendid and superior animals, reaching maturity at about ten years of age and having a natural life span of about forty years. That is, they might have lived that long had they died natural deaths, but in those early days very few animals ever died a natural death; the struggle for existence was altogether too intense.

62.4.6 (707.5) And now, after almost nine hundred generations of development, covering about twenty-one thousand years from the origin of the dawn mammals, the Primates suddenly gave birth to two remarkable creatures, the first true human beings.

62.4.7 (707.6) Thus it was that the dawn mammals, springing from the North American lemur type, gave origin to the mid-mammals, and these mid-mammals in turn produced the superior Primates, who became the immediate ancestors of the primitive human race. The Primates tribes were the last vital link in the evolution of man, but in less than five thousand years not a single individual of these extraordinary tribes was left.

5. THE FIRST HUMAN BEINGS

62.5.1 (707.7) From the year A.D. 1934 back to the birth of the first two human beings is just 993,419 years.

62.5.2 (707.8) These two remarkable creatures were true human beings. They possessed perfect human thumbs, as had many of their ancestors, while they had just as perfect feet as the present-day human races. They were walkers and runners, not climbers; the grasping function of the big toe was absent, completely absent. When danger drove them to the treetops, they climbed just like the humans of today would. They would climb up the trunk of a tree like a bear and not as would a chimpanzee or a gorilla, swinging up by the branches.

최초의 이 인간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열두 살이 됐을 때 완전한 성인{成人}이 됐고, 잠재 수명은 약 75년이였다.

이 인간 쌍둥이에게는 일찍부터 새로운 감정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물 및 다른 존재들에 대해 감탄하는 감정을 체험했고, 상당한 허무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감정의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정말로 인간과 똑같은 일련의 새로운 느낌, 즉 경외심, 존경심, 겸손함, 그리고 원시 형태의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일련의 경이로운 느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두려움은, 자연 현상에 대한 무지{無智}와 결합해서, 곧 원시 종교를 발생시키게 됐다.

이 원시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인간적 느낌뿐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더 많은 감상{感想}도 초보 형태로 출현했다. 그들은, 동정심, 부끄러움, 및 치욕감을 약간 인지할 수 있었고, 사랑, 미움, 및 복수심을 정확하게 의식했으며, 뚜렷이 질투하는 느낌에 쉽게 빠지기도 했다.

최초의 이 두 인간은--곧 쌍둥이는-- 그들의 **영장류**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그들은 여덟 살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실 그대로, 그들이 열두 살 됐을 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였다.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말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열 살이 되자, 개량된 신호와 50여 가지 관념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안해냈고, 선조들의 미숙한 의사소통 기법을 크게 개선하고 확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지만, 부모에게 새로운 신호와 기호들 가운데 겨우 몇 개만 가르칠 수 있었다.

아홉 살 정도 됐을 때, 어느 청명한 날, 그들은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여행했고, 중대한 논의를 했다. 바로 나도 포함해서, **유란시아**에 배치된 천상의 모든 지성체는, 한낮에 이 밀회장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봤다. 중대한 이날에, 그들은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으며, 이것은 일련의 합의 중에서 첫 합의였지만, 마침내 열등한 동물 친척으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도록 했고, 그들은 이로써 인간 종족의 시초를 이루게 됐음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조그마한 이 두 미개인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뒀지만, 그들의 정신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며; 그들의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줄 수 없었다. 그러나 행성 기능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생명 운반자**인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과 함께, 쌍둥이 인간을 북쪽으로, 그리고 털이 많고 부분적으로 나무 위에서 사는 무리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쌍둥이는 그들 자신의 지성적 선택으로 이주하게 됐고, 우

62:5.3 (708.1) These first human beings (and their descendants) reached full maturity at twelve years of age and possessed a potential life span of about seventy-five years.

62:5.4 (708.2) Many new emotions early appeared in these human twins. They experienced admiration for both objects and other beings and exhibited considerable vanity. But the most remarkable advance in emotional development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a new group of really human feelings, the worshipful group, embracing awe, reverence, humility, and even a primitive form of gratitude. Fear, joined with ignorance of natural phenomena, is about to give birth to primitive religion.

62:5.5 (708.3) Not only were such human feelings manifested in these primitive humans, but many more highly evolved sentiments were also present in rudimentary form. They were mildly cognizant of pity, shame, and reproach and were acutely conscious of love, hate, and revenge, being also susceptible to marked feelings of jealousy.

62:5.6 (708.4) These first two humans — the twins — were a great trial to their Primates parents. They were so curious and adventurous that they nearly lost their lives on numerous occasions before they were eight years old. As it was, they were rather well scarred up by the time they were twelve.

62:5.7 (708.5) Very early they learned to engage in verbal communication; by the age of ten they had worked out an improved sign and word language of almost half a hundred ideas and had greatly improved and expanded the crude communicative technique of their ancestors. But try as hard as they might, they were able to teach only a few of their new signs and symbols to their parents.

62:5.8 (708.6) When about nine years of age, they journeyed off down the river one bright day and held a momentous conference. Every celestial intelligence stationed on Urantia, including myself, was present as an observer of the transactions of this noontide tryst. On this eventful day they arrived at an understanding to live with and for each other, and this was the first of a series of such agreement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decision to flee from their inferior animal associates and to journey northward, little knowing that they were thus to found the human race.

62:5.9 (708.7) While we were all greatly concerned with what these two little savages were planning, we were powerless to control the working of their minds; we did not — could not — arbitrarily influence their decisions. But within the permissible limits of planetary function, we, the Life Carriers, together with our associates, all conspired to lead the human twins northward and far from their hairy and partially tree-dwelling people. And so, by reason of their own intelligent

리의 지도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외딴 지역에 도착했으며, **영장류** 부족들에 속하는 열등한 여러 친족과 섞임으로써 생물학적으로 퇴화될 가능성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이 고향 삼림으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긴 팔원숭이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사고력은 갖지 못했지만, 자손을 위해서 포유류가 갖는 높은 차원의 훌륭한 애정을 소유했고, 굉장한 그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대담하게 바쳤다. 또한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지원군과 함께 도착해서 침입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적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이 젊은 쌍이 인간 종족 설립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떠난 직후에, 그들의 **영장류**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그는 비탄에 잠겼다. 그는 다른 자녀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영리한 자식을 잃게 되자, 평범한 동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듯 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숲 속에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적대적인 긴팔원숭이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 죽었다.

6. 인간 정신의 진화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인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 원형질을 지구에 있는 물속에 심었던 날부터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과정을 지내왔으며, 정말로 지성적이고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자연적으로 처음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과 최상의 만족감을 누리게 됐다.

우리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유란시아**에 배정된 일곱 보조 정신_영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쌍둥이의 정신적인 발달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다. 행성 생명체의 긴 진화 발전 과정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이 정신 사역자(事役者)들은, 점차 우수해지는 동물 피조물의 연달아 확장하는 두뇌 수용력과 접촉하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을 항상 등록해 왔었다.

원시 동물 생명체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습성에서, 처음에는 **직관의 기질**만 작용할 수 있었다. 더 높은 유형들이 분화(分化)됨에 따라서, **이해의 기질**이 그런 피조물에게 여러 관념을 자동으로 관련시키는 재능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우리는, **용기의 기질**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진화하는 동물들은 보호하고 싶어 하는 미숙한 형태의 자아 의식(意識)을 실제로 개발하게 됐다. 포유류 집단들이 출현한 후에, 우리는 **지식의 기질**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고등 포유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조언의 기질**이 작용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집단을 이루는 본능이 자라나고, 원시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choice, the twins did *migrate*, and because of our supervision they migrated *northward* to a secluded region where they escaped the possibility of biologic degradation through admixture with their inferior relatives of the Primates tribes.

62:5.10 (708.8) Shortly before their departure from the home forests they lost their mother in a gibbon raid. While she did not possess their intelligence, she did have a worthy mammalian affection of a high order for her offspring, and she fearlessly gave her life in the attempt to save the wonderful pair. Nor was her sacrifice in vain, for she held off the enemy until the father arrived with reinforcements and put the invaders to rout.

62:5.11 (709.1) Soon after this young couple forsook their associates to found the human race, their Primates father became disconsolate — he was heartbroken. He refused to eat, even when food was brought to him by his other children. His brilliant offspring having been lost, life did not seem worth living among his ordinary fellows; so he wandered off into the forest, was set upon by hostile gibbons and beaten to death.

6. EVOLUTION OF THE HUMAN MIND

62:6.1 (709.2) We, the Life Carriers on Urantia, had passed through the long vigil of watchful waiting since the day we first planted the life plasm in the planetary waters, and naturally the appearance of the first really intelligent and volitional beings brought to us great joy and supreme satisfaction.

62:6.2 (709.3) We had been watching the twins develop mentally through our observa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ssigned to Urantia at the time of our arrival on the planet. Throughout the long evolutionary development of planetary life, these tireless mind ministers had ever registered their increasing ability to contact with the successively expanding brain capacities of the progressively superior animal creatures.

62:6.3 (709.4) At first only the *spirit of intuition* could function in the instinctive and reflex behavior of the primordial animal life. With the differentiation of higher types, the *spirit of understanding* was able to endow such creatures with the gift of spontaneous association of ideas. Later on we observed the *spirit of courage* in operation; evolving animals really developed a crude form of protective self-consciousness. Subsequent to the appearance of the mammalian groups, we beheld the *spirit of knowledge* manifesting itself in increased measure. And the evolution of the higher mammals brought the function of the *spirit of counsel*, with the resulting growth of the herd instinct and the beginnings of primitive social

시조 포유동물, 중간_포유동물, 및 **영장류**로 발전되면서, 처음 다섯 보조체가 점점 더 이바지하는 것을 지켜왔다. 그러나 가장 높은 정신 사역자인 나머지 두 가지는, **유란시아** 유형의 진화하는 정신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적이 결코 없었다.

쌍둥이가 열 살 정도 된—어느 날, **경배의 기절**이 쌍둥이 중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정신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남자 쪽의 정신과 접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인간 정신과 아주 유사하게 된 어떤 정신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알았고; 약 1년 후에, 그들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집에서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는 심사숙고한 생각과 목적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때부터 **지혜의 기절**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이 두 인간 정신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이 즉시 새로운 체제로 활성화됐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으며; 오래 기다리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됐으며; **유란시아**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진화시키려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던 것이 바야흐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7. 인간거주 세계로서 인정받음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도망친 다음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행성 수신_초점에 우주 회로 신호를 처음으로 시험하는 섬광이 발생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흥분했지만; 이 세계가 생명을_실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행성에 있는 지성 생명체에 대한 승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고될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결된 상태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가출한지 3일째 되던 날, 그리고 **생명 운반자** 단체가 떠나기 전에, 초기 행성 회로를 설립하는 **네바돈** 천사장이 도착했다.

유란시아에 중대한 날이었던 그날, 작은 집단인 우리는 우주 통신이 이뤄지는 행성 극점{極點} 근처에 모였으며, 지구에 새롭게 설립된 정신 회로에 대해서, **살빙톤**으로부터 첫 소식이 접수됐다. 그리고 천사장 단체의 우두머리가 구술한 이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들에게—잘 있었느냐! 의지를 지닌 존엄한 정신이 **유란시아**에 실존하게 됐다는 신호가 **네바돈** 본부에 등록된 것을 축하하면서, **살빙톤**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확실히 전한다. 그 쌍둥이가 열등한 선조로부터 북쪽으로 도망쳐서

development.

62:6.4 (709.5) Increasingly, on down through the dawn mammals, the mid-mammals, and the Primates, we had observed the augmented service of the first five adjutants. But never had the remaining two, the highest mind ministers, been able to function in the Urantia type of evolutionary mind.

62:6.5 (709.6) Imagine our joy one day — the twins were about ten years old — when the *spirit of worship* made its first contact with the mind of the female twin and shortly thereafter with the male. We knew that something closely akin to human mind was approaching culmination; and when, about a year later, they finally resolved, as a result of meditative thought and purposeful decision, to flee from home and journey north, then did the *spirit of wisdom* begin to function on Urantia and in these two now recognized human minds.

62:6.6 (709.7) There was an immediate and new order of mobiliza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We were alive with expectation; we realized that the long-awaited-for hour was approaching; we knew we were upon the threshold of the realization of our protracted effort to evolve will creatures on Urantia.

7. RECOGNITION AS AN INHABITED WORLD

62:7.1 (709.8) We did not have to wait long. At noon, the day after the runaway of the twins, there occurred the initial test flash of the universe circuit signals at the planetary reception-focus of Urantia. We were, of course, all astir with the realization that a great event was impending; but since this world was a life-experiment station, we had not the slightest idea of just how we would be apprised of the recognition of intelligent life on the planet. But we were not long in suspense. On the third day after the elopement of the twins, and before the Life Carrier corps departed, there arrived the Nebadon archangel of initial planetary circuit establishment.

62:7.2 (710.1) It was an eventful day on Urantia when our small group gathered about the planetary pole of space communication and received the first message from Salvington over the newly established mind circuit of the planet. And this first message, dictated by the chief of the archangel corps, said:

62:7.3 (710.2) “To the Life Carriers on Urantia — Greetings! We transmit assurance of great pleasure on Salvington, Edentia, and Jerusem in honor of the registration 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of the signal of the existence on Urantia of mind of will dignity. The purposeful decision of

자기 자손을 격리시키려는, 목적의식 있는 결정이 감지됐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정신이--곧 인간 유형의 정신이--내린 첫 결정이었고, 이를 인정한다는 이 첫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통신 회로가 자동으로 설치됐다."

이어서 이 새로운 회로를 통해서, **에덴시아**에 있는 **지고자**로부터 축하 인사가 도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설치했던 생명체 원형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 진보에 속하는 직무에 끼어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 진화 계획의 자연적인 외부작업에 멋대로 기계적으로 항상 끼어든다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을 조종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 원형질을 보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었으며, 그것은 보통과는 다른 관리체제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자연스런 것이었고 언젠가는 중단되게 돼 있었다.

그리고 **지고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인 **루시퍼**로부터 아름다운 메시지가 행성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제 **생명 운반자**들은 자신의 우두머리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들었고, **예루셈**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유란시아**에서 **생명 운반자**들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확립된 대로 **네바돈**의 생명체 원형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기울인 어떤 수고에 대해서든지, 장래에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면제시켰다.

살빙톤, **에덴시아**, 및 **예루셈**에서 온 이 메시지들은, **생명 운반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행성을 감독하던 일이 종결됐음을 정식으로 표시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근무했고, 오직 일곱 보조 정신_영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 즉 경배 드리기와 상승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행성에 있는 진화 피조물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업무가 완료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우리 무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유란시아**는 생명체_변경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 운반자**들 중에서 상급자들이 열두 보조원과 함께 남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며, 나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에 남아 있다.

유란시아가 **네바돈** 우주에서 인간 거주 행성으로서 정식으로 인식된 것은, 서기 1934년으로부터 정확하게 993,408년 전이었다. 생물학적 진화는, 존엄한 의지를 지닌 인간 수준을 다시 한 번 성취했으며; **사타니아**에 있는 606_번 행성에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the twins to flee northward and segregate their offspring from their inferior ancestors has been noted. This is the first decision of mind — the human type of mind — on Urantia and automatically establishes the circuit of communication over which this initial message of acknowledgment is transmitting."

62:7.4 (710.3) Next over this new circuit came the greetings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containing instructions for the resident Life Carriers forbidding us to interfere with the pattern of life we had established. We were directed not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human progress. It should not be inferred that Life Carriers ever arbitrarily and mechanically interfere with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planetary evolutionary plans, for we do not. But up to this time we had been permitted to manipulate the environment and shield the life plasm in a special manner, and it was this extraordinary, but wholly natural, supervision that was to be discontinued.

62:7.5 (710.4) And no sooner had the Most Highs left off speaking than the beautiful message of Lucifer, then sovereign of the Satania system, began to planetize. Now the Life Carriers heard the welcome words of their own chief and received his permission to return to Jerusalem. This message from Lucifer contained the official acceptance of the Life Carriers' work on Urantia and absolved us from all future criticism of any of our efforts to improve the life patterns of Nebadon as established in the Satania system.

62:7.6 (710.5) These messages from Salvington, Edentia, and Jerusalem formally marked the termination of the Life Carriers' agelong supervision of the planet. For ages we had been on duty, assisted only by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now, will, the power of choosing to worship and to ascend, having appeared in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he planet, we realized that our work was finished, and our group prepared to depart. Urantia being a life-modification world, permission was granted to leave behind two senior Life Carriers with twelve assistants, and I was chosen as one of this group and have ever since been on Urantia.

62:7.7 (710.6) It is just 993,408 years ago (from the year A.D. 1934) that Urantia was formally recognized as a planet of human habita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Biologic evolution had once again achieved the human levels of will dignity; man had arrived on planet 606 of Satania.

62:7.8 (710.7) [Sponsor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resident on Urantia.]

제 63편. 첫 인간 가족

⇨ 062

유란시아 책

06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63편
첫 인간 가족

섹션

소개

1. 안돈과 흰타
2. 쌍둥이의 도피
3. 안돈의 가족
4. 안돈의 씨족들
5. 안돈족속의 분산
6. 오나가--처음으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7. 안돈과 흰타의 생존

PAPER 63
THE FIRST HUMAN FAMILY

SECTIONS

Introduction

1. Andon and Fonta
2. The Flight of the Twins
3. Andon's Family
4. The Andonic Clans
5. Dispersion of the Andonites
6. Onagar — The First Truth Teacher
7. The Survival of Andon and Fonta

소개

최초의 두 인간이--즉 쌍둥이가-- 열한 살 됐을 때, 그리고 실제 인간의 둘째 세대, 즉 처음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부모가 되기 전에, **유란시아**는 인간거주 세계로 등록됐다. 그리고 이 행성이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살빙톤**에서 천사장이 보낸 메시지는 이런 말로 마무리됐다:

“사람의 정신이 **사타니아**의 606_번 행성에 나타났고, 새로운 인종의 부모인 이 사람들을 **안돈**과 **흰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사장은, 개인적으로 내주하도록 선물로 주어지는 **만유의 아버지의 영**{靈}이, 이 피조물에게 속히 부여되기를 기원한다.”

안돈은 **네바돈**에서 준 이름인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아버지** 같은 첫 피조물”을 의미한다. **흰타**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아들** 같은 피조물”을 의미한다. **안돈**과 **흰타**는 이런 이름을, **사고 조율사**와 융합될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에 머무는 동안에 서로 부른 이름은 **손타_안**과 **손타_엔**이었는데, **손타_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손타_엔**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

INTRODUCTION

63:0.1 (711.1) URANTIA was registered as an inhabited world when the first two human beings — the twins — were eleven years old, and before they had become the parents of the first-born of the second generation of actual human beings. And the archangel message from Salvington, on this occasion of formal planetary recognition, closed with these words:

63:0.2 (711.2) “Man-mind has appeared on 606 of Satania, and these parents of the new race shall be called *Andon* and *Fonta*. And all archangels pray that these creatures may speedily be endowed with the personal indwelling of the gift of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63:0.3 (711.3) Andon is the Nebadon name which signifies “the first Fatherlike creature to exhibit human perfection hunger.” Fonta signifies “the first Sonlike creature to exhibit human perfection hunger.” Andon and Fonta never knew these names until they were bestowed upon them at the time of fusion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Throughout their mortal sojourn on Urantia they called each other Sonta-an and Sonta-en, Sonta-an meaning “loved by mother,” Sonta-en signifying

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런 이름을 붙였고, 그 의미는 그들의 상호 존중심과 애정을 뜻했다.

“loved by father.” They gave themselves these names, and the meanings are significant of their mutual regard and affection.

1. 안돈과 툰타

여러 면에서, **안돈**과 **툰타**는 그때까지 지구에 살았던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부였다. 온 인류의 실제 조상인 이 훌륭한 부부는, 많은 직계 후손보다 모든 점에서 뛰어났고, 그들의 가깝거나 먼 모든 옛 조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최초의 이 인간 부부의 부모는, 겉으로 보기에 그들 부족의 평균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비교적 더 총명한 부족원이었는데, 그들은 싸울 때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운 집단이었다. 또한 그들은 날카로운 돌 조각, 부싯돌, 및 뼈를 이용했다.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안돈**은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몽둥이 끝에 붙들어 매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위해서 동물 힘줄을 이용했고, 자기 생명은 물론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열두 번 이상 그런 무기를 잘 사용했는데, 그 자매는 그와 마찬가지로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가 탐험 여행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다녔다.

영장류 부족들로부터 도망치기로 한 **안돈**과 **툰타**의 결심은, 그들의 후대 자손 대부분의 특징이었던 열등한 사고력보다 질적으로 훨씬 높았음을 의미하는데, 그 후대 자손들은, 뒤떨어진 동족의 유인원 족속과 짝질 정도로 타락했다. 그러나 단순한 동물 존재들보다 자신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막연한 느낌은, 그들이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이었고,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여 현존함으로써 증대됐다.

2. 쌍둥이의 도피

안돈과 **툰타**는 북쪽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한 후에, 한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특히 아버지와 그 직계 가족이 화낼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경우를 상상해 본 결과, 이미 자기들을 시기하고 있는 부족원들의 손에 붙잡히면 죽기 십상임을 깨닫게 됐다.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쌍둥이는 늘 동행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사촌 격인 **영장류** 부족 동물들은 그들을 몹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매우 뛰어난 독립된 집을 나무로 지은 것도, 부족 내에서 그들의 처지를 호전시키지 못했다.

나무 꼭대기에 새로 지은 이 집에서, 맹렬한

1. ANDON AND FONTA

63:1.1 (711.4) In many respects, Andon and Fonta were the most remarkable pair of human beings that have ever lived on the face of the earth. This wonderful pair, the actual parents of all mankind, were in every way superior to many of their immediate descendants, and they were radically different from all of their ancestors, both immediate and remote.

63:1.2 (711.5) The parents of this first human couple were apparently little different from the average of their tribe, though they were among its more intelligent members, that group which first learned to throw stones and to use clubs in fighting. They also made use of sharp spicules of stone, flint, and bone.

63:1.3 (711.6) While still living with his parents, Andon had fastened a sharp piece of flint on the end of a club, using animal tendons for this purpose, and on no less than a dozen occasions he made good use of such a weapon in saving both his own life and that of his equally adventurous and inquisitive sister, who unfailingly accompanied him on all of his tours of exploration.

63:1.4 (711.7) The decision of Andon and Fonta to flee from the Primates tribes implies a quality of mind far above the baser intelligence which characterized so many of their later descendants who stooped to mate with their retarded cousins of the simian tribes. But their vague feeling of being something more than mere animals was due to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and was augmented by the indwelling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2. THE FLIGHT OF THE TWINS

63:2.1 (712.1) After Andon and Fonta had decided to flee northward, they succumbed to their fears for a time, especially the fear of displeasing their father and immediate family. They envisaged being set upon by hostile relatives and thus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meeting death at the hands of their already jealous tribesmen. As youngsters, the twins had spent most of their time in each other's company and for this reason had never been overly popular with their animal cousins of the Primates tribe. Nor had they improved their standing in the tribe by building a separate, and a very superior, tree home.

63:2.2 (712.2) And it was in this new home among the

태풍 때문에 그들이 잠에서 깬 어느 날 밤에, 무서워서 다정히 서로 끌어안았을 때, 그들은 나무 꼭대기 집과 부족 서식지로부터 도망칠 것을 마침내 온전히 결심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반나절 여행할 거리에, 천연 그대로의 나무 꼭대기 대피소를 이미 준비해 뒀다. 이것은 고향 숲에서 도망친 첫 날을 위한 그들의 은밀하고 안전한 은신처였다.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쌍둥이도 밤중에 땅 위에 있기를 심히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어두워지기 직전에 북쪽을 향한 고된 여행을 시작했다. 보름달이 비치기는 했으나, 이렇게 밤에 여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상한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그들은 부족원들과 친척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미리 약속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만났다.

북쪽으로 여행하던 중에, 그들은 밖으로 돌출돼있는 부싯돌 퇴적층을 발견했고, 여러 용도에 알맞은 모양의 돌을 많이 찾았으며, 장래를 위해서 수집해 뒀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더 적당한 모양이 되도록 이 부싯돌을 다듬다가, **안돈**은 그것들에서 불꽃이 튀는 특성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불을 피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는, 기후가 아직 온화해서 불이 별로 필요치 않았던 당시에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해가 점점 낮게 났고, 그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밤 공기가 점점 서늘해졌다. 이미 그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동물 가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못됐을 때, **안돈**은 부싯돌로 불을 피울 수 있노라는 생각을 짝에게 내비쳤다. 그들은 부싯돌의 불꽃으로 불을 피우려고 두 달 동안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은 날마다 부싯돌을 마찰시켰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애썼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에, 버려진 새 동지를 손에 넣으려고 **원타**가 근처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을 때, 불을 붙이는 기법의 비밀이 풀리게 됐다. 동지는 건조한 상태였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으며, 불꽃을 계속 튀겨서 그 위에 떨어뜨리자, 어느 순간에 완전히 불이 붙게 됐다. 그들은 성공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지만, 적당한 땀감을 더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고, 온 인류의 조상인 그들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땀감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의 짧지만 다사{多事}했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자신이 피워 놓은 모닥불을 밤새도록 앉아서 바라봤고, 이제는 자기들이 기후 조건에 맞서고, 따라서 남쪽 땅에 있는 친족 동물로부터 영원히 독립할 수 있는 발견을 해냈음을 어렵듯이 깨달았다. 그들은 3일 동안 더 머물면서 불을 바라본 후에, 다시 길을 떠났다.

안돈의 영장류 선조도, 번갯불로 붙은 불에

treetops, one night after they had been awakened by a violent storm, and as they held each other in fearful and fond embrace, that they finally and fully made up their minds to flee from the tribal habitat and the home treetops.

63:2.3 (712.3) They had already prepared a crude treetop retreat some half-day's journey to the north. This was their secret and safe hiding place for the first day away from the home forests. Notwithstanding that the twins shared the Primates' deathly fear of being on the ground at nighttime, they sallied forth shortly before nightfall on their northern trek. While it required unusual courage for them to undertake this night journey, even with a full moon, they correctly concluded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be missed and pursued by their tribesmen and relatives. And they safely made their previously prepared rendezvous shortly after midnight.

63:2.4 (712.4) On their northward journey they discovered an exposed flint deposit and, finding many stones suitably shaped for various uses, gathered up a supply for the future. In attempting to chip these flints so that they would be better adapted for certain purposes, Andon discovered their sparking quality and conceived the idea of building fire. But the notion did not take firm hold of him at the time as the climate was still salubrious and there was little need of fire.

63:2.5 (712.5) But the autumn sun was getting lower in the sky, and as they journeyed northward, the nights grew cooler and cooler. Already they had been forced to make use of animal skins for warmth. Before they had been away from home one moon, Andon signified to his mate that he thought he could make fire with the flint. They tried for two months to utilize the flint spark for kindling a fire but only met with failure. Each day this couple would strike the flints and endeavor to ignite the wood. Finally, one evening about the time of the setting of the sun, the secret of the technique was unraveled when it occurred to Fonta to climb a near-by tree to secure an abandoned bird's nest. The nest was dry and highly inflammable and consequently flared right up into a full blaze the moment the spark fell upon it. They were so surprised and startled at their success that they almost lost the fire, but they saved it by the addition of suitable fuel, and then began the first search for firewood by the parents of all mankind.

63:2.6 (712.6) This was one of the most joyous moments in their short but eventful lives. All night long they sat up watching their fire burn, vaguely realizing that they had made a discovery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defy climate and thus forever to be independent of their animal relatives of the southern lands. After three days' rest and enjoyment of the fire, they journeyed on.

63:2.7 (712.7) The Primates ancestors of Andon had

종종 뿔감을 더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땅에 살았던 어떤 피조물도, 자기 의지로 불 피우는 방법을 터득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가, 새 동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끼나 기타 물질들도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을 익히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3. 안돈의 가족

쌍둥이가 그날 밤 집에서 떠난 지 거의 2년 됐을 무렵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손타드**라고 붙였는데, **손타드**는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피조물 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덮개에 싸인 최초의 존재였다. 인간 종족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런 새로운 진화와 함께, 점점 더 연약하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알맞게 돌볼 수 있는 본능이 나타났으며, 이런 아기들은 순전히 동물적인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지적 계열의 정신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나타내곤 했다.

안돈과 **원타**는 모두 열아홉 명의 자녀를 낳았고, 거의 50여명에 이르는 손주 및 여섯 명의 증손과 같이 살 수 있었다. 그 가족은, 네 개의 서로 붙어 있는 바위 집, 즉 동굴 비슷한 곳에 살았는데, **안돈**의 자녀들이 부싯돌 도구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석회암에 동굴 모양의 통로를 만들었으므로, 그 중에 셋은 서로 연결됐다.

이런 초기 **안돈족속**은 매우 분명한 씨족 기질을 나타냈으며;무리 지어 사냥했고, 집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격리돼 있고 독특한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존재이며, 따라서 서로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다. 친족으로서 이런 긴밀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보조 영들이 정신에게 베푸는 사역이 증진됐기 때문이었다.

안돈과 **원타**는 씨족을 양육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마흔두 살까지 살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짐으로써 둘 다 죽게 됐다. 그들의 자녀 다섯 명과 손주 열한 명이 그들과 함께 죽었고, 그들의 후손 중에서 거의 20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부모를 잃게 된 **손타드**는,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씨족의 지도자역할을 했고, 제일 나이 많은 여동생인 그의 부인의 훌륭한 내조를 받았다. 그들의 첫째 과제는, 돌을 굴려서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의 시신을 잘 매장하는 일이었다. 이런 매장 행위에, 부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 이후의 생존 관념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모호했고, 주로 그들이 꿈 속에서 환상적으로 잡다하게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안돈과 **원타**의 이 가족은 20번째 세대가 이어

often replenished fire which had been kindled by lightning, but never before had the creatures of earth possessed a method of starting fire at will. But it was a long time before the twins learned that dry moss and other materials would kindle fire just as well as birds' nests.

3. ANDON'S FAMILY

63:3.1 (713.1) It was almost two years from the night of the twins' departure from home before their first child was born. They named him Sontad; and Sontad was the first creature to be born on Urantia who was wrapped in protective coverings at the time of birth. The human race had begun, and with this new evolution there appeared the instinct properly to care for the increasingly enfeebled infants which would characteriz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mind of the intellectual order as contrasted with the more purely animal type.

63:3.2 (713.2) Andon and Fonta had nineteen children in all, and they lived to enjoy the association of almost half a hundred grandchildren and half a dozen great-grandchildren. The family was domiciled in four adjoining rock shelters, or semicaves, three of which were interconnected by hallways which had been excavated in the soft limestone with flint tools devised by Andon's children.

63:3.3 (713.3) These early Andonites evinced a very marked clannish spirit; they hunted in groups and never strayed very far from the homesite. They seemed to realize that they were an isolated and unique group of living beings and should therefore avoid becoming separated. This feeling of intimate kinship was undoubtedly due to the enhanced mind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63:3.4 (713.4) Andon and Fonta labored incessantly for the nurture and uplift of the clan. They lived to the age of forty-two, when both were killed at the time of an earthquake by the falling of an overhanging rock. Five of their children and eleven grandchildren perished with them, and almost a score of their descendants suffered serious injuries.

63:3.5 (713.5) Upon the death of his parents, Sontad, despite a seriously injured foot, immediately assumed the leadership of the clan and was ably assisted by his wife, his eldest sister. Their first task was to roll up stones to effectively entomb their dead parents, brothers, sisters, and children. Undue significance should not attach to this act of burial. Their ideas of survival after death were very vague and indefinite, being largely derived from their fantastic and variegated dream life.

63:3.6 (713.6) This family of Andon and Fonta held

질 때까지 함께 살았고, 그 후부터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경쟁과 사회적 마찰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했다.

4. 안돈의 씨족들

원시인--곧 **안돈족속**--은 검은 눈을 지녔고, 노랜 색과 붉은 색이 섞인 고무잡잡한 피부를 지녔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색소{色素}다. 그것은 **안돈** 고유의 피부 색소였다. 이런 초기 **안돈족속**의 피부색과 일반적인 모습은, 살아있는 어떤 인간 유형보다도 오늘날의 **에스키모인**과 닮았었다. 그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사용한 최초의 피조물이었으며; 그들의 몸에 나 있는 털은 오늘날의 인간보다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런 초기 사람의 동물 선조가 누렸던 부족 생활은 수많은 사회 관례의 전조{前兆}가 됐으며, 이 존재들의 감정이 확장되고 두뇌 능력이 발전되면서, 곧 사회 조직이 발달했고, 새로운 종류의 씨족 공동 노동 단위가 발달했다. 그들은 흥내를 매우 잘 냈지만, 놀이 본능은 아주 약간 발달될 정도였으며, 유머 감각은 거의 전무했다. 원시인은 이따금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쾌활하게 웃는 법이 없었다. 유머는 후대의 **아담** 인종이 물려준 유산이었다. 이 초기 인간은 고통에 별로 민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화된 많은 펠사자의 경우와는 달리, 불쾌한 환경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원타**와 그 직계 자손에게, 출산은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체험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탄할만한 부족이었다. 남성은 자기 배우자와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여성은 자녀를 위해서 애정 넘치게 헌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희생정신은 직계 씨족에 국한됐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 매우 충실했으며;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관념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종교가 탄생되는 데 필요한 모든 감정이, 이 **유란시아** 원주민 속에 이미 나타났음에도, 이타심{利他心}은 인간의 마음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초기의 이 사람들은 동지들에 대해 감동적인 애정을 가졌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진실된 우정의 관념을 분명히 소유했다. 후대에 이르러, 이 원시인들이 열등한 부족들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쟁하게 됐을 때, 한 손으로는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처 입은 동료 전사{戰士}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진화되어 발전하면서, 대단히 고귀하고 무척 인간다운 많은 특성이 이런 원시 민족에게 어렴풋이나마 나타난 것은 감동적이다.

together until the twentieth generation, when combined food competition and social friction brought about the beginning of dispersion.

4. THE ANDONIC CLANS

63:4.1 (713.7) Primitive man — the Andonites — had black eyes and a swarthy complexion, something of a cross between yellow and red. Melanin is a coloring substance which is found in the skins of all human beings. It is the original Andonic skin pigment. In general appearance and skin color these early Andonites more nearly resembled the present-day Eskimo than any other type of living human beings. They were the first creatures to use the skins of animals as a protection against cold; they had little more hair on their bodies than present-day humans.

63:4.2 (713.8) The tribal life of the animal ancestors of these early men had foreshadowed the beginnings of numerous social conventions, and with the expanding emotions and augmented brain powers of these beings, there was an immediate development in social organization and a new division of clan labor. They were exceedingly imitative, but the play instinct was only slightly developed, and the sense of humor was almost entirely absent. Primitive man smiled occasionally, but he never indulged in hearty laughter. Humor was the legacy of the later Adamic race. These early human beings were not so sensitive to pain nor so reactive to unpleasant situations as were many of the later evolving mortals. Childbirth was not a painful or distressing ordeal to Fonta and her immediate progeny.

63:4.3 (714.1) They were a wonderful tribe. The males would fight heroically for the safety of their mates and their offspring; the females were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ir children. But their patriotism was wholly limited to the immediate clan. They were very loyal to their families; they would die without question in defense of their children, but they were not able to grasp the idea of try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their grandchildren. Altruism was as yet unborn in the human heart, notwithstanding that all of the emotions essential to the birth of religion were already present in these Urantia aborigines.

63:4.4 (714.2) These early men possessed a touching affection for their comrades and certainly had a real, although crude, idea of friendship. It was a common sight in later times, during their constantly recurring battles with the inferior tribes, to see one of these primitive men valiantly fighting with one hand while he struggled on, trying to protect and save an injured fellow warrior. Many of the most noble and highly human traits of subsequent evolutionary development were touchingly foreshadowed in these primitive

안돈에게서 시작된 원래의 씨족은 27대까지 지휘 계통이 잘 유지됐는데, **손타드**의 직계 후손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지 않게 되자, 씨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두 사람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됐다.

안돈으로부터 파생된 씨족들이 널리 흩어지기 전에, 일찍부터 서로 의사를 소통하려고 애쓴 결과로, 잘 발달된 하나의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 언어는 계속 발달했고, 이런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경했으므로, 거의 매일 새로운 말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 언어는, 후대에 여러 색의 인종이 출현하기 전까지, **유란시아**의 말, 즉 초기 인간 가족의 언어가 됐다.

시간이 흐르자, **안돈**의 씨족은 점점 늘어났고, 퍼져가는 가족끼리 접촉할 때 마찰과 오해가 점점 많아졌다. 이들의 정신에는 두 가지 생각만 자리 잡게 됐는데: 양식을 얻으려고 사냥하는 일과, 이웃 부족의 힘에 눌려서 실제로 어떤 불공평한 대우나 모욕을 받든지, 또는 받았다고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싸우는 일이었다.

가족의 불화(不和)가 증대됐고, 부족 전쟁이 발발했으며, 비교적 유능하고 진보된 집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구성원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 손실됐다. 이런 손실 가운데 일부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역량과 지성을 지닌 가장 귀중한 혈통들 중에서 더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 초기 인종과 그들의 원시 문명은 씨족들의 이런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소멸됐다.

그런 원시적 존재들끼리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열망하도록 유도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싸우는 동물의 후손이며, 미개한 민족은 가깝게 연합될 때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진화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이런 경향을 잘 알았으며, 따라서 발전된 인간이 중국에는 적어도 독특하고도 분리된 세 인종으로, 그리고 더 흔하게는 여섯 인종으로 나뉘도록 마련한다.

5. 안돈족속의 분산

초기의 **안돈** 인종은 **아시아** 쪽으로 아주 멀리 들어가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지형 조건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 향했고, 서서히 확장하는 세 번째 빙하에 길이 막힐 때까지 북쪽으로 점점 더 멀리 이동했다.

이 광대한 얼음 덩어리가 **불란서**와 **영국 섬**들에 이르기 전까지, **안돈**과 **원타**의 자손은 **유럽** 서쪽으로 이동했고, 당시에 따뜻한 물로 이뤄졌던

peoples.

63:4.5 (714.3) The original Andonic clan maintained an unbroken line of leadership until the twenty-seventh generation, when, no male offspring appearing among Sontad's direct descendants, two rival would-be rulers of the clan fell to fighting for supremacy.

63:4.6 (714.4) Before the extensive dispersion of the Andonic clans a well-developed language had evolved from their early efforts to intercommunicate. This language continued to grow, and almost daily additions were made to it because of the new inventions and adaptations to environment which were developed by these active, restless, and curious people. And this language became the word of Urantia, the tongue of the early human family, until the later appearance of the colored races.

63:4.7 (714.5) As time passed, the Andonic clans grew in number, and the contact of the expanding families developed friction and misunderstandings. Only two things came to occupy the minds of these peoples: hunting to obtain food and fighting to avenge themselves against some real or supposed injustice or insult at the hands of the neighboring tribes.

63:4.8 (714.6) Family feuds increased, tribal wars broke out, and serious losses were sustained among the very best elements of the more able and advanced groups. Some of these losses were irreparable; some of the most valuable strains of ability and intelligence were forever lost to the world. This early race and its primitive civilization we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this incessant warfare of the clans.

63:4.9 (714.7) It is impossible to induce such primitive beings long to live together in peace. Man is the descendant of fighting animals, and when closely associated, uncultured people irritate and offend each other. The Life Carriers know this tendency among evolutionary creatures and accordingly make provision for the eventual separation of developing human beings into at least three, and more often six, distinct and separate races.

5. DISPERSION OF THE ANDONITES

63:5.1 (715.1) The early Andon races did not penetrate very far into Asia, and they did not at first enter Africa. The geography of those times pointed them north, and farther and farther north these people journeyed until they were hindered by the slowly advancing ice of the third glacier.

63:5.2 (715.2) Before this extensive ice sheet reached France and the British Isles, the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had pushed on westward over Europe and had established more than one

북해로 나가는 거대한 강기슭을 따라, 천여 개 이상의 독립된 마을을 이뤘다.

이 **안돈** 부족들이 바로 **불란서**의 초기 강변 거주자이며; **쑤므** 강변을 따라 수만 년 동안 살았다. **쑤므** 강은 빙하의 영향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강이었고, 당시에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사실은, **안돈**의 후손에 대한 많은 증거물이, 왜 이 강 유역 줄기를 따라서 발견되는지 설명한다.

유란시아의 이 원주민은, 위험이 닥치는 경우에 여전히 나무 꼭대기로 피신했지만, 나무 위에서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조성된 지붕처럼 생긴 절벽 아래 은신처에서, 그리고 접근하는 길을 잘 볼 수 있고 폭풍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구릉지대 동굴에서 주로 거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기 때문에 심한 불편을 겪지 않고도 불의 안락함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뒤에 후대의 얼음 덩어리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자손이 동굴 속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은 순전한 동굴 거주자 또한 아니었다. 그들은 숲가장자리와 시냇가에서 야영하기를 선호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호된 거주지를 꾸미기에 매우 일찍부터 놀랄 만한 솜씨를 보였고, 돌로 된 침실, 즉 돌로 된 둥근 모양의 오두막을 기술적으로 지었으며, 밤이 되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돌을 굴려서, 오두막 입구를 막았는데, 지붕을 돌로 완전히 덮기 전에 이 큰 돌을 안쪽에 들여놓음으로써,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안돈족속은 두려움 없는 노련한 사냥꾼이었고, 야생 딸기류와 특정한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기를 먹었다. **안돈**이 돌도끼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던지는 창과 작살을 일찍부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손이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공구를 발명하는 정신이 작용했고, 이 초기 인간들은 부싯돌로 된 도구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금, 백금, 다이아몬드 등을 찾으려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여행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싯돌을 찾기 위해서 더 멀리, 더 광범한 지역으로 여행했다.

그리고 이 **안돈** 부족들은, 퇴보하는 후손들이 50만 년 동안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지성을 여러 방면에서 발휘했지만, 그 후손들은 불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을 되풀이함으로써 다시 발견했다.

6. 오나가--처음으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안돈의 후예가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씨족들의 문화적 및 영적 상태는 **오나가**가 출

thousand separate settlements along the great rivers leading to the then warm waters of the North Sea.

63:5.3 (715.3) These Andonic tribes were the early river dwellers of France; they lived along the river Somme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The Somme is the one river unchanged by the glaciers, running down to the sea in those days much as it does today. And that explains why so much evidence of the Andonic descendants is found along the course of this river valley.

63:5.4 (715.4) These aborigines of Urantia were not tree dwellers, though in emergencies they still betook themselves to the treetops. They regularly dwelt under the shelter of overhanging cliffs along the rivers and in hillside grottoes which afforded a good view of the approaches and sheltered them from the elements. They could thus enjoy the comfort of their fires without being too much inconvenienced by the smoke. They were not really cave dwellers either, though in subsequent times the later ice sheets came farther south and drove their descendants to the caves. They preferred to camp near the edge of a forest and beside a stream.

63:5.5 (715.5) They very early became remarkably clever in disguising their partially sheltered abodes and showed great skill in constructing stone sleeping chambers, dome-shaped stone huts, into which they crawled at night. The entrance to such a hut was closed by rolling a stone in front of it, a large stone which had been placed inside for this purpose before the roof stones were finally put in place.

63:5.6 (715.6) The Andonites were fearless and successful hunters and, with the exception of wild berries and certain fruits of the trees, lived exclusively on flesh. As Andon had invented the stone ax, so his descendants early discovered and made effective use of the throwing stick and the harpoon. At last a tool-creating mind was functioning in conjunction with an implement-using hand, and these early humans became highly skillful in the fashioning of flint tools. They traveled far and wide in search of flint, much as present-day humans journey to the ends of the earth in quest of gold, platinum, and diamonds.

63:5.7 (715.7) And in many other ways these Andon tribes manifested a degree of intelligence which their retrogressing descendants did not attain in half a million years, though they did again and again rediscover various methods of kindling fire.

6. ONAGAR — THE FIRST TRUTH TEACHER

63:6.1 (715.8) As the Andonic dispersion extended, the cultu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e clans retrogressed for nearly ten thousand years until

현하는 시기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퇴보했으며, 그는 이 부족들의 지도자가 됐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했으며,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에게 그들 모두가 처음으로 경배 드리도록 이끌었다.

안돈의 철학은 매우 혼동돼 있었는데; 그는 불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으므로, 불 숭배자가 될 만한 것을 겨우 면했다. 어쨌든, 그의 이성, 자신이 직접 발견했던 것으로부터, 열과 빛의 근원이 되는 비교적 더 장엄하고 뛰어난 태양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했지만, 태양이 너무 멀리 있어서 태양 숭배자가 되지는 못했다.

안돈족속은 --천둥, 번개, 비, 눈, 우박, 얼음 등의-- 자연 현상에 대한 경외심을 일찍부터 키웠다. 그러나 이런 초기 시대에는 굶주림이 계속 반복적인 자극으로 작용했고, 그들은 주로 동물을 먹었으므로, 결국 동물숭배 형태로 진화했다. **안돈**에게, 더 큰 식용 동물은 창조적 힘과 몸을 보호하는 능력의 상징이었다. 때로는, 이런 몸집 큰 여러 종류의 동물을 숭배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했다. 특정한 동물이 숭배 대상으로 성행하는 동안, 그 동물의 투박한 윤곽선이 동굴 벽에 그려졌고, 후대에는 기술이 점차 발전돼서, 그런 동물 신(神)이 여러 장신구(裝身具)에 새겨졌다.

안돈 민족은 매우 일찍부터, 부족이 공경하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관습을 형성했다. 마침내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더 적절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공경하고 있는 이 동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숭배하는 예식(禮式)을 발달시켰으며; 아주 후대에는, 이런 원시적 실행이 자기 후손을 제물로 바치는, 더 공들인 예식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숭배의 한 부분으로 제물을 바치게 됐다. 그리고 이 관념을 **모세**가 **히브리** 제례식에 정교하게 도입했고, 이론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 받는다는 교리로 유지시켰다.

이 원시 인간의 생활에서 양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던 **오나가**가 단순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이러했다:

“오 **생명의 입김**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얼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숲 속에 있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위대한 저 세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오나가는 현재 **카스피해**가 위치한 지역의 고대 **지중해** 북쪽 해안에 있는, **오반**이라고 불리는 정착지에 본부를 설치했고,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여행로가, 서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곳에 있는 체류지였다. 그는 **오반**에서 멀리 떨어진 정착지들로 선생들을 보내서, 자신이 새로 세운 유일(唯一) **신격**의 교리와 내세(來世)

the days of Onagar, who assumed the leadership of these tribes, brought peace among them, and for the first time, led all of them in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to men and animals.”

63:6.2 (716.1) Andon's philosophy had been most confused; he had barely escaped becoming a fire worshiper because of the great comfort derived from his accidental discovery of fire. Reason, however, directed him from his own discovery to the sun as a superior and more awe-inspiring source of heat and light, but it was too remote, and so he failed to become a sun worshiper.

63:6.3 (716.2) The Andonites early developed a fear of the elements — thunder, lightning, rain, snow, hail, and ice. But hunger was the constantly recurring urge of these early days, and since they largely subsisted on animals, they eventually evolved a form of animal worship. To Andon, the larger food animals were symbols of creative might and sustaining power. From time to time it became the custom to designate various of these larger animals as objects of worship. During the vogue of a particular animal, crude outlines of it would be drawn on the walls of the caves, and later on, as continued progress was made in the arts, such an animal god was engraved on various ornaments.

63:6.4 (716.3) Very early the Andonic peoples formed the habit of refraining from eating the flesh of the animal of tribal veneration. Presently, in order more suitably to impress the minds of their youths, they evolved a ceremony of reverence which was carried out about the body of one of these venerated animals; and still later on, this primitive performance developed into the more elaborate sacrificial ceremonies of their descendants. And this is the origin of sacrifices as a part of worship. This idea was elaborated by Moses in the Hebrew ritual and was preserved, in principle, by the Apostle Paul as the doctrine of atonement for sin by “the shedding of blood.”

63:6.5 (716.4) That food was the all-important thing in the lives of these primitive human beings is shown by the prayer taught these simple folks by Onagar, their great teacher. And this prayer was:

63:6.6 (716.5) “O Breath of Life, give us this day our daily food, deliver us from the curse of the ice, save us from our forest enemies, and with mercy receive us into the Great Beyond.”

63:6.7 (716.6) Onagar maintained headquarters on the northern shores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in the region of the present Caspian Sea at a settlement called Oban, the tarrying place on the westward turning of the travel trail leading up northward from the Mesopotamian southland. From Oban he sent out teachers to the remote

개념을 전파하려 했고, 내세를 **위대한 저 세상**이라고 불렀다. **오나가**가 보낸 이 사자{使者}들은 이 세상에서 최초의 선교사였으며; 고기를 익혀 먹은, 정기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기를 막대기 끝에 꿰서 익히거나 달궈진 돌 위에 익혔으며; 나중에는 불 속에 큰 덩어리로 굽기도 했지만, 그들의 후손은 날고기를 먹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되돌아갔다.

오나가는 (서기 1934년으로부터) 983,323년 전에 태어났고, 69세까지 살았다. **행성 왕자** 이전 시대에 최고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 원시 민족이 실제 사회를 형성한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는 효과적인 부족 정부를 설립했는데,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런 모습은 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그런 고도의 영적 문명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 기록되지 못했다. 단순한 이 사람들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교를 가졌으나, 그들의 퇴화된 후손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했다.

안돈과 톨타는 그들의 여러 후손과 마찬가지로 **사고 조율사**를 받았지만, **오나가**의 시대가 돼서야 많은 숫자의 **조율사**와 수호 스라빔이 **유란시아**에 내려오게 됐다. 이 시대는 원시인에게 정말로 황금기였다.

7. 안돈과 톨타의 생존

인간 종족의 화려한 설립자였던 **안돈과 톨타**는, **유란시아**에 **행성 왕자**가 도착하면서 판결이 내려질 때 인정받았고, 때가 이르자 **예루셈**의 시민 자격을 받으면서 맨션 세계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들은 비록 **유란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설립한 인종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배반에 대해 슬퍼했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비통해 했지만,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증여할 무대로서 자기들의 세계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떨 듯이 기뻐했다.

안돈과 톨타는 **예루셈**에서 자신의 **사고 조율사**와 융합됐고, **손타드**를 포함한 그들의 자손 여러 명도 그렇게 됐으나, 심지어 그들의 직계 후손 중에서도 대다수가 오직 **영** 융합을 성취했을 뿐이다.

안돈과 톨타는, **예루셈**에 도착한 직후에, **유란시아**로부터 하늘의 구체{球體}들로 들어오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시아 인격체들과 함께 수고하기 위해, 첫 맨션 세계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체계 주권자**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근무에 무기한 배정돼

settlements to spread his new doctrines of one Deity and his concept of the hereafter, which he called the Great Beyond. These emissaries of Onagar were the world's first missionaries; they were also the first human beings to cook meat, the first regularly to use fire in the preparation of food. They cooked flesh on the ends of sticks and also on hot stones; later on they roasted large pieces in the fire, but their descendants almost entirely reverted to the use of raw flesh.

63:6.8 (716.7) Onagar was born 983,323 years ago (from A.D. 1934), and he lived to be sixty-nine years of age. The record of the achievements of this master mind and spiritual leader of the pre-Planetary Prince days is a thrilling recital of the organization of these primitive peoples into a real society. He instituted an efficient tribal government, the like of which was not attained by succeeding generations in many millenniums. Never again, until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was there such a high spiritual civilization on earth. These simple people had a real though primitive religion, but it was subsequently lost to their deteriorating descendants.

63:6.9 (717.1) Although both Andon and Fonta had received Thought Adjusters, as had many of their descendants, it was not until the days of Onagar that the Adjusters and guardian seraphim came in great numbers to Urantia. This was, indeed, the golden age of primitive man.

7. THE SURVIVAL OF ANDON AND FONTA

63:7.1 (717.2) Andon and Fonta, the splendid founders of the human race, received recognition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Urantia upon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nd in due time they emerged from the regime of the mansion worlds with citizenship status on Jerusem. Although they have never been permitted to return to Urantia, they are cognizant of the history of the race they founded. They grieved over the Caligastia betrayal, sorrowed because of the Adamic failure, but rejoiced exceedingly when announcement was received that Michael had selected their world as the theater for his final bestowal.

63:7.2 (717.3) On Jerusem both Andon and Fonta were fused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as also were several of their children, including Sontad, but the majority of even their immediate descendants only achieved Spirit fusion.

63:7.3 (717.4) Andon and Fonta, shortly after their arrival on Jerusem,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System Sovereign to return to the first mansion world to serve with the morontia personalities who welcome the pilgrims of time from Urantia to the heavenly spheres. And they have been assigned

있다. 그들은 본 계시와 관련해서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 요청은 지혜롭게 거절됐다.

그리고 이것이, **유란시아**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웅대하고 황홀한 장{章}, 즉 온 인류의 독특한 부모가 진화하고, 살아가느라 애쓰고, 죽고, 영원히 생존하게 됐다는 줄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indefinitely to this service. They sought to send greetings to Urantia in connection with these revelations, but this request was wisely denied them.

63:7.4 (717.5) And this is the recital of the most heroic and fascinating chapter in all the history of Urantia, the story of the evolution, life struggles, death, and eternal survival of the unique parents of all mankind.

63:7.5 (717.6) [Presented by a Life Carrier resident on Urantia.]

제 64편. 진화된 유색인종

⇨ 063

유란시아 책

06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64편
진화된 유색인종

섹션

소개

1. 안돈 원주민
2. 획스홀 민족
3. 바도난 부족
4. 네안데르탈 인종
5. 유색 인종의 기원
6. 유란시아의 여섯 상의 인종
7. 유색 인종의 분산

소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만 년 전, **안돈**과 **원타**의 시절부터, **행성 왕자**의 시대를 거쳐서,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살았던, **유란시아**의 진화 인종들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 종족의 역사는 거의 100만 년에 이르며,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이전 시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인류 역사의 후반부는, **행성 왕자**의 도착과 여섯 유색인종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로 간주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1. 안돈 원주민

원시인이 진화해서 지구상에 출현한지 100만 년이 조금 못됐고, 격렬한 체험을 했다. 원시인은 열등한 유인원 족속들과 섞이는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애썼다. 그러나 원시인은, 바다 위로 30,000피트 이상 융기돼 있는 건조한 **티벳** 고원 지역 때문에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

PAPER 64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ndonic Aborigines
2. The Foxhall Peoples
3. The Badonan Tribes
4. The Neanderthal Races
5. Origin of the Colored Races
6.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7. Dispersion of the Colored Races

INTRODUCTION

64:0.1 (718.1) THIS is the story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from the days of Andon and Fonta, almost one million years ago, down through the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end of the ice age.

64:0.2 (718.2) The human race is almost one million years old, and the first half of its story roughly corresponds to the pre-Planetary Prince days of Urantia. The latter half of the history of mankind begins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appearance of the six colored races and roughly corresponds to the period commonly regarded as the Old Stone Age.

1. THE ANDONIC ABORIGINES

64:1.1 (718.3) Primitive man made his evolutionary appearance on earth a little less than one million years ago, and he had a vigorous experience. He instinctively sought to escape the danger of mingling with the inferior simian tribes. But he could not migrate eastward because of the arid

으며; **지중해**가 확대돼 있었으므로 남쪽이나 서쪽으로 갈 수 없었는데, 당시에 **지중해**는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확장돼 있었으며;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전진하는 얼음 덩어리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얼음 때문에 더 북쪽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그리고 흩어지는 종족들이 점점 더 호전성을 띄게 됐음에도, 좀 더 지능이 발달된 무리는, 털이 많고 나무 위에 사는 열등한 지능의 친족들과 함께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사람이 초기에 품은 종교적 감정 가운데 다수는 이런 지형적 상황의 폐쇄된 환경--곧 오른 쪽으로는 산이, 왼쪽으로는 물이, 그리고 앞으로는 얼음이 가로막은 환경--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진취적인 이 **안돈족속**은, 남쪽에서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는 열등한 친족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안돈족속**은, 인간이 아닌 동족의 습관과는 대조적으로, 숲을 피했다. 숲 속에 거주하는 자는 항상 퇴보했으며; 인간의 진화는 오로지 개방된 고지대에서만 이뤄졌다. 개활지에서 부딪치는 추위와 배고픔이, 행동, 발명, 및 임기응변을 자극한다. 이 **안돈** 후손 부족들이, 바위투성이의 북쪽 지대에서 고난과 궁핍을 겪으면서 현재 인간 종족의 선구자로 발전해갔던 반면, 그들의 퇴보하는 친족은, 초기에 공통으로 기원됐던 남부 열대림 속에 있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런 사건들은, 지질학자들이 제1빙하기로 알고 있는 제3빙하기에 일어났다.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빙하 지대는 북 **유럽**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빙하기 동안, **영국**은 **불란서**와 육지로 연결됐고, 한편 **아프리카**는 나중에 **시칠리**의 연결육지로 **유럽**에 붙어 있었다. **안돈** 후손이 이주하던 시기에, 서쪽으로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동쪽으로는 **자바**에 이르는 곳까지 육지가 계속 연결돼 있었지만; **오스트랄리아**는 다시 격리됐고, 그것만의 독특한 동물군(郡)이 더 두드러지게 발달했다.

950,000년 전에, **안돈**과 **원타**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이주했다. 서쪽으로 향한 그들은 **유럽**을 지나 **불란서**와 **영국**까지 이르렀다. 더 나중에 그들은 동쪽으로 진출해서, --**자바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뼈가 아주 최근에 발견된 바 있는 **자바** 지역까지 이르렀고, 그 후에 **타스매니아**에 도착했다.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들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무리들이, 같은 선조로부터 기원된 퇴보된 혈통에 덜 오염됐는데,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는 뒤떨어진 동족 동물과 아주 자유롭게 섞였다. 이 진취성 없는 개인들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열등한 부족들과 짝 짓게 됐다.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출생된 불어나는 잡종이 다시 북쪽으로 가서,

Tibetan land elevations, 30,000 feet above sea level; neither could he go south nor west because of the expanded Mediterranean Sea, which then extended eastward to the Indian Ocean; and as he went north, he encountered the advancing ice. But even when further migration was blocked by the ice, and though the dispersing tribes became increasingly hostile, the more intelligent groups never entertained the idea of going southward to live among their hairy tree-dwelling cousins of inferior intellect.

64.1.2 (718.4) Many of man's earliest religious emotions grew out of his feeling of helplessness in the shut-in environment of this geographic situation — mountains to the right, water to the left, and ice in front. But these progressive Andonites would not turn back to their inferior tree-dwelling relatives in the south.

64.1.3 (718.5) These Andonites avoided the forests in contrast with the habits of their nonhuman relatives. In the forests man has always deteriorated; human evolution has made progress only in the open and in the higher latitudes. The cold and hunger of the open lands stimulate action, invention, and resourcefulness. While these Andonic tribes were developing the pioneers of the present human race amidst the hardships and privations of these rugged northern climes, their backward cousins were luxuriating in the southern tropical forests of the land of their early common origin.

64.1.4 (718.6) These events occurred during the times of the third glacier, the first according to the reckoning of geologists. The first two glaciers were not extensive in northern Europe.

64.1.5 (718.7) During most of the ice age England was connected by land with France, while later on Africa was joined to Europe by the Sicilian land bridge. At the time of the Andonic migrations there was a continuous land path from England in the west on through Europe and Asia to Java in the east; but Australia was again isolated, which further accentuated the development of its own peculiar fauna.

64.1.6 (719.1) 950,000 years ago the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had migrated far to the east and to the west. To the west they passed over Europe to France and England. In later times they penetrated eastward as far as Java, where their bones were so recently found — the so-called Java man — and then journeyed on to Tasmania.

64.1.7 (719.2) The groups going west became less contaminated with the backward stocks of mutual ancestral origin than those going east, who mingled so freely with their retarded animal cousins. These unprogressive individuals drifted southward and presently mated with the inferior tribes. Later on, increasing numbers of their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안돈족속**과 짝졌고, 그런 유감스런 결합으로 말미암아, 우세한 혈통이 끊임 없이 나빠졌다. 원시 정착민 중에서 **호흡을 주신 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초기 시조 문명은 소멸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란시아**에 늘 있었다. 열등한 자들과 결합해서 자손을 낳도록 허락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장래가 매우 촉망되던 문명이 연속해서 퇴화됐고,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

2. 획스홀 민족

900,000년 전에, **안돈**과 **원타**의 기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며; 문화, 종교, 및 부식돌 활용조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바로 이때, 큰 무리의 열등한 잡종 집단이 **불란서** 남쪽으로부터 **영국**에 도착했다. 이 부족들은, 숲에서 사는 꼬리 없는 원숭이 모양의 피조물과 너무 많이 섞여서,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종교도 갖지 못했지만, 미숙하나마 부식돌을 쓸 줄 알았고,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고력을 가졌다.

그들에 이어,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더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한 민족이 뒤따랐고, 그들의 자손이 북쪽으로는 빙하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지중해** 지역까지, 온 대륙에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부족들이 소위 **하이델베르그인**이다.

문화가 퇴보하는 이 긴 기간에, **영국**의 **획스홀** 민족들이,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는 **바도난** 부족들이, **안돈**의 전통 가운데 일부와 **오나가**의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여전히 전수하고 있었다.

획스홀 민족은 가장 서쪽에 살았고, **안돈**의 문화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또한 부식돌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을 보존했는데, 이것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의 고대{古代} 선조에게 전수했다.

획스홀 민족의 유물이 **영국**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안돈족속**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 인간이었다. 당시에는 연결육지가 여전히 **불란서**와 **영국**을 이어주고 있었으며; **안돈** 후손이 살던 초기 정착지들 대부분이, 고대의 강변과 해안선을 따라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해협**과 **북해**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중에 서너 개 정도는 **영국** 해안선 부근 물위에 남아있다.

획스홀 민족 중에서 더 지성적이고 영적인 사

mongrel descendants returned to the north to mate with the rapidly expanding Andonic peoples, and such unfortunate unions unfailingly deteriorated the superior stock. Fewer and fewer of the primitive settlements maintained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This early dawn civilization was threatened with extinction.

64:1.8 (719.3) And thus it has ever been on Urantia. Civilizations of great promise have successively deteriorated and have finally been extinguished by the folly of allowing the superior freely to procreate with the inferior.

2. THE FOXHALL PEOPLES

64:2.1 (719.4) 900,000 years ago the arts of Andon and Fonta and the culture of Onagar were vanishing from the face of the earth; culture, religion, and even flintworking were at their lowest ebb.

64:2.2 (719.5) These were the times when large numbers of inferior mongrel groups were arriving in England from southern France. These tribes were so largely mixed with the forest apeline creatures that they were scarcely human. They had no religion but were crude flintworkers and possessed sufficient intelligence to kindle fire.

64:2.3 (719.6) They were followed in Europe by a somewhat superior and prolific people, whose descendants soon spread over the entire continent from the ice in the north to the Alps and Mediterranean in the south. These tribes are the so-called *Heidelberg race*.

64:2.4 (719.7) During this long period of cultural decadence the Foxhall peoples of England and the Badonan tribes northwest of India continued to hold on to some of the traditions of Andon and certain remnants of the culture of Onagar.

64:2.5 (719.8) The Foxhall peoples were farthest west and succeeded in retaining much of the Andonic culture; they also preserved their knowledge of flintworking, which they transmitted to their descendants, the ancient ancestors of the Eskimos.

64:2.6 (719.9) Though the remains of the Foxhall peoples were the last to be discovered in England, these Andonites were really the first human beings to live in those regions. At that time the land bridge still connected France with England; and since most of the early settlements of the Andon descendants were located along the rivers and seashores of that early day, they are now under the waters of the English Channel and the North Sea, but some three or four are still above water on the English coast.

64:2.7 (720.1) Many of the more intelligent and

람 가운데 다수는 자신의 인종적 탁월성을 유지했고, 원시적인 종교 관습을 계속 유지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후대의 혈통들과 섞이면서, 후기 빙하 침투가 있는 뒤에, **영국**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했고, 오늘날의 **에스키모인**으로 살아남았다.

3. 바도난 부족

서쪽에 있는 **foxhall** 민족을 제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다른 문화 중심지가 동쪽에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먼 후손인 **바도난** 부족 중에서, **인도**의 북서쪽 고원(高原) 구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민족은 **안돈**의 후손 가운데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족속**은, 숲으로 둘러싸이고 하천들이 가로지르는 광대한 고원을 차지했으며, 사냥감이 풍부했다. 그들은 **티벳** 지역에 있는 동쪽 가운데 일부와 비슷하게, 천연적인 암석 오두막, 산 중턱에 있는 동굴, 그리고 반지하(半地下)의 통로 속에서 살았다.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빙하를 점점 더 두려워했던 반면, 그들이 기원했던 고향 땅 근처에 사는 부족들은 물을 대단히 무서워하게 됐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점차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목격했고, 그 반도가 몇 차례 융기했음에도, 바다의 위협성과 주기적인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해서, 이 원시 인종들의 구전(口傳)이 조성됐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강물의 범람을 체험한 것과 함께, 안전한 주거용 장소를 찾기 위해 고지대(高地帶)로 올라가게 된 원인이 됐다.

바도난 민족들이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인도** 북부의 **시왈릭 언덕**에서, 지구상의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사람과 다양한 선행인류 집단 사이의 과도기 유형에 더 가까운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850,000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은, 자신보다 열등하고 동물에 가까운 이웃을 멸종시키려는 전쟁을 시작했다. 1,0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던 대부분의 동물 집단은 멸종되거나 남쪽 숲 속으로 도망쳤다. 열등한 자들을 멸종시키는 이 전쟁은, 그 시대에 높은 곳에 살던 종족들에게 약간의 향상을 가져다줬다. 그리고 향상된 이 **바도난족속** 혈통의 혼합된 후손들이, 걸으로 보기에 새로운 민족으로서--곧 **네안데르탈** 인종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4. 네안데르탈 인종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우수한 전사(戰士)였고, 먼 지역까지 여행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의 고

spiritual of the Foxhall peoples maintained their racial superiority and perpetuated their primitive religious customs. And these people, as they were later admixed with subsequent stocks, journeyed on west from England after a later ice visitation and have survived as the present-day Eskimos.

3. THE BADONAN TRIBES

64:3.1 (720.2) Besides the Foxhall peoples in the west, another struggling center of culture persisted in the east. This group was located in the foothills of the northwestern Indian highlands among the tribes of Badonan, a great-great-grandson of Andon. These people were the only descendants of Andon who never practiced human sacrifice.

64:3.2 (720.3) These highland Badonites occupied an extensive plateau surrounded by forests, traversed by streams, and abounding in game. Like some of their cousins in Tibet, they lived in crude stone huts, hillside grottoes, and semiunderground passages.

64:3.3 (720.4) While the tribes of the north grew more and more to fear the ice, those living near the homeland of their origin became exceedingly fearful of the water. They observed the Mesopotamian peninsula gradually sinking into the ocean, and though it emerged several times, the traditions of these primitive races grew up around the dangers of the sea and the fear of periodic engulfment. And this fear, together with their experience with river floods, explains why they sought out the highlands as a safe place in which to live.

64:3.4 (720.5) To the east of the Badonan peoples, in the Siwalik Hills of northern India, may be found fossils that approach nearer to transition types between man and the various prehuman groups than any others on earth.

64:3.5 (720.6) 850,000 years ago the superior Badonan tribes began a warfare of extermination directed against their inferior and animalistic neighbors. In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most of the borderland animal groups of these regions had been either destroyed or driven back to the southern forests. This campaign for the extermination of inferiors brought about a slight improvement in the hill tribes of that age. And the mixed descendants of this improved Badonite stock appeared on the stage of action as an apparently new people — the *Neanderthal race*.

4. THE NEANDERTHAL RACES

64:4.1 (720.7) The Neanderthals were excellent fighters, and they traveled extensively. They

원(高原) 중심지로부터 퍼져나가서, 서쪽으로는 **불란서**,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심지어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됐다. 그들은 진화된 유색 인종들이 이주하는 시기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800,000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고;여러 종(種)의 사슴과 코끼리와 하마가 **유럽**에 넘쳐났다. 소가 많았고;말과 이리는 없는 곳이 없었다. **네안데르탈인**은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불란서**에 있는 부족들은,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가장 우수한 사냥꾼에게 부여하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 **네안데르탈인**에게 순록은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는데, 양식과 옷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하고 뼈와 뼈를 여러 용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부싯돌을 다루는 솜씨는 **안돈** 시대 수준에 거의 필적할 만큼 크게 향상됐다. 나무 손잡이에 매단 큰 부싯돌이 다시 사용됐고, 도끼와 곡괭이 역할을 했다.

750,000년 전에, 네 번째 얼음 층이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왔다. **네안데르탈인**은, 북쪽의 강을 덮은 얼음에 개선된 도구로 구멍을 내고, 이 공기 구멍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창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 부족들은 확장되는 빙하를 피해서 계속 후퇴했는데, 이 무렵에 빙하는 **유럽**에 가장 광대하게 침투해 있었다.

이 시대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까지 내려왔고, 초기의 사람을 남쪽으로 몰아냈으며, 원래 발생했던 지역 쪽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인간 종족들은 매우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진보하지 않는 유인원 동족과 더 혼합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700,000년 전에, **유럽** 지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던 제4기 빙하가 퇴각했으며;사람과 동물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후는 추웠고 습도가 높았으며, 원시인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에서 다시 번성했다. 가장 최근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북쪽 대륙이, 점차 숲으로 뒤덮이게 됐다.

포유류 생명체는 대빙하기에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 동물들은, 빙하 지대와 **알프스** 사이에 있는 띠 모양의 좁은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빙하가 물러가면서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똑바른 엄니를 가진 코끼리,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칠리아** 연결_육지를 통해서 도착했고, 이 새로운 동물들이,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와 하마를 사실상 전멸시켰다.

650,000년 전에,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현상이 있었다.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에 기온이 매우 따뜻해져서, **알프스** 지역의 얼음과 눈이 거의 사라졌다.

gradually spread from the highland centers in northwest India to France on the west, China on the east, and even down into northern Africa. They dominated the world for almost half a million years until the times of the migr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64:4.2 (720.8) 800,000 years ago game was abundant; many species of deer, as well as elephants and hippopotamuses, roamed over Europe. Cattle were plentiful; horses and wolves were everywhere. The Neanderthals were great hunters, and the tribes in France were the first to adopt the practice of giving the most successful hunters the choice of women for wives.

64:4.3 (721.1) The reindeer was highly useful to these Neanderthal peoples, serving as food, clothing, and for tools, since they made various uses of the horns and bones. They had little culture, but they greatly improved the work in flint until it almost reached the levels of the days of Andon. Large flints attached to wooden handles came back into use and served as axes and picks.

64:4.4 (721.2) 750,000 years ago the fourth ice sheet was well on its way south. With their improved implements the Neanderthals made holes in the ice covering the northern rivers and thus were able to spear the fish which came up to these vents. Ever these tribes retreated before the advancing ice, which at this time made its most extensive invasion of Europe.

64:4.5 (721.3) In these times the Siberian glacier was making its southernmost march, compelling early man to move southward, back toward the lands of his origin. But the human species had so differentiated that the danger of further mingling with its nonprogressive simian relatives was greatly lessened.

64:4.6 (721.4) 700,000 years ago the fourth glacier, the greatest of all in Europe, was in recession; men and animals were returning north. The climate was cool and moist, and primitive man again thrived in Europe and western Asia. Gradually the forests spread north over land which had been so recently covered by the glacier.

64:4.7 (721.5) Mammalian life had been little changed by the great glacier. These animals persisted in that narrow belt of land lying between the ice and the Alps and, upon the retreat of the glacier, again rapidly spread out over all Europe. There arrived from Africa, over the Sicilian land bridge, straight-tusked elephants, broad-nosed rhinoceroses, hyenas, and African lions, and these new animals virtually exterminated the saber-toothed tigers and the hippopotamuses.

64:4.8 (721.6) 650,000 years ago witnessed the continuation of the mild climate. By the middle of the interglacial period it had become so warm that the Alps were almost denuded of ice and snow.

600,000년 전에, 빙하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퇴각(退却)했고, 수천 년 동안 활동이 멈췄다가, 다섯 번째 확장이 다시 남쪽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유럽에 있는 사람과 동물에게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에 있었던 약간 건조했던 상태가 줄어들었고, 고산지대의 빙하들은 강물이 있는 계곡을 따라서 멀리까지 내려왔다.

550,000년 전에, 확장되는 빙하가 사람과 동물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넓은 지역에 풍부한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북동쪽으로 아시아까지 뻗어 나간 때 모양의 넓은 땅에, 그리고 당시의 지중해 지역에 크게 확장돼 있었던 흑해 지역과 빙하 시대 사이에 있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빙하기 시대에, 네안데르탈 인종의 미개한 문화는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지능이 높은 새롭고 수정된 생명체 유형을 생성하려는 시도가, 유란시아에서 정말로 실패하는 듯했다. 거의 25만 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싸웠으며,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들의 우수한 안돈 조상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퇴보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절 동안, 미신에 사로잡힌 인류의 문화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정말로 조잡스런 미신 이상(以上)의 종교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구름, 특히 이슬비와 안개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했다. 자연 현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원시 종교가 점점 발전했고, 한편 동물을 숭배하던 현상은 도구가 발달되면서 점차 퇴보했고, 사냥감이 풍부했으므로, 이 민족은 양식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았으며; 사냥에 대한 성적(性的) 보상으로 인해 수렵 솜씨가 크게 발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새로 발생된 이 종교는, 이런 자연 요소들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달래보려고 시도하도록 이끌었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지(未知)의 물리적 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 끔찍한 풍습을, 유란시아에서 뒤쳐진 민족들이 20세기까지 지속시켰다.

이 초기 네안데르탈인을 태양 숭배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며, 밤이 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달이 어스푸레 비치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지낼 수 있었지만, 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혔고, 달이 다시 비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와 여자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이 규칙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달의 경우에는, 오직 자기 부족의 동료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고 추측했다. 그 인종이 진보되면서, 제물을 바치는 대상과 목적은 점차 바뀌게 됐지만, 종교 예식절차의 한 순서로서 인간을 제물

64:4.9 (721.7) 600,000 years ago the ice had reached its then northernmost point of retreat and, after a pause of a few thousand years, started south again on its fifth excursion. But there was little modification of climate for fifty thousand years. Man and the animals of Europe were little changed. The slight aridity of the former period lessened, and the alpine glaciers descended far down the river valleys.

64:4.10 (721.8) 550,000 years ago the advancing glacier again pushed man and the animals south. But this time man had plenty of room in the wide belt of land stretching northeast into Asia and lying between the ice sheet and the then greatly expanded Black Sea extension of the Mediterranean.

64:4.11 (721.9) These times of the fourth and fifth glaciers witnessed the further spread of the crude culture of the Neanderthal races. But there was so little progress that it truly appeared as though the attempt to produce a new and modified type of intelligent life on Urantia was about to fail. For almost a quarter of a million years these primitive peoples drifted on, hunting and fighting, by spells improving in certain directions, but, on the whole, steadily retrogressing as compared with their superior Andonic ancestors.

64:4.12 (721.10) During these spiritually dark ages the culture of superstitious mankind reached its lowest levels. The Neanderthals really had no religion beyond a shameful superstition. They were deathly afraid of clouds, more especially of mists and fogs. A primitive religion of the fear of natural forces gradually developed, while animal worship declined as improvement in tools, with abundance of game, enabled these people to live with lessened anxiety about food; the sex rewards of the chase tended greatly to improve hunting skill. This new religion of fear led to attempts to placate the invisible forces behind these natural elements and culminated, later on, in the sacrificing of humans to appease these invisible and unknown physical forces. And this terrible practice of human sacrifice has been perpetuated by the more backward peoples of Urantia right on down to the twentieth century.

64:4.13 (722.1) These early Neanderthals could hardly be called sun worshipers. They rather lived in fear of the dark; they had a mortal dread of nightfall. As long as the moon shone a little, they managed to get along, but in the dark of the moon they grew panicky and began the sacrifice of their best specimens of manhood and womanhood in an effort to induce the moon again to shine. The sun, they early learned, would regularly return, but the moon they conjectured only returned because they sacrificed their fellow tribesmen. As the race advanced, the object and purpose of sacrifice progressively changed, but the offering of human

로 바치는 관습은 오래 지속됐다.

sacrifice as a part of religious ceremonial long persisted.

5. 유색 인종의 기원

500,000년 전에,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 사는 **바도난** 부족들은, 또 한 번 극심한 인종적 투쟁에 휘말렸다. 격렬한 이 전쟁은 100년 이상 맹위를 떨쳤고, 긴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오직 100여 가구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고 있던 **안돈**과 **퀵타**의 자손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바람직했다.

그리고 이때,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족속** 가운데서 새롭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는 고지대의 북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남자와 여자로부터, 유별나게 지성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게 됐다. 이들이 **상익**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여섯 유색 인종의 조상이었다.

이 **상익** 자손은 모두 열아홉 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더 지성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됨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열아홉 명의 이 아이들 가운데는, 홍색 다섯 명, 주황색 두 명, 황색 네 명, 녹색 두 명, 청색 네 명, 그리고 남색이 두 명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색깔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그 동료 부족민과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자손은 모두 **상익** 부모의 피부색을 닮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나는, 이 무렵에 **행성 왕자**가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이제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유란시아**에 나타난 여섯 **상익** 인종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려고 한다.

6. 유란시아의 여섯 상익 인종

진화하는 보통 행성에서는, 진화하는 여섯 유색 인종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데; 홍색 사람이 처음 나타나서 진화되고, 그 다음 색깔의 인종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인종이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두루 퍼진다. **유란시아**에서처럼 여섯 인종이 동시에, 그것도 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은 가장 유별났다.

그 전에 **유란시아**에 나타났던 **안돈족속**도, **사타니아** 체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웠다. 진화하는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의지를 지닌 그런 피조물 인종이 진화되는 세계는 그 지방체계에 하나도 없었다.

1. **홍색인**. 이 민족은 인간 종족 가운데 비상한 종류였고, 여러 면에서 **안돈**과 **퀵타**를 능가했

5. ORIGIN OF THE COLORED RACES

64:5.1 (722.2) 500,000 years ago the Badonan tribes of the northwestern highlands of India became involved in another great racial struggl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this relentless warfare raged, and when the long fight was finished, only about one hundred families were left. But these survivors were the most intelligent and desirable of all the then living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64:5.2 (722.3) And now, among these highland Badonites there was a new and strange occurrence. A man and woman living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then inhabited highland region began *suddenly* to produce a family of unusually intelligent children. This was the *Sangik family*, the ancestors of all of the six colored races of Urantia.

64:5.3 (722.4) These Sangik children, nineteen in number, were not only intelligent above their fellows, but their skins manifested a unique tendency to turn various colors upon exposure to sunlight. Among these nineteen children were five red, two orange, four yellow, two green, four blue, and two indigo. These colors became more pronounced as the children grew older, and when these youths later mated with their fellow tribesmen, all of their offspring tended toward the skin color of the Sangik parent.

64:5.4 (722.5) And now I interrupt the chronological narrative, after calling attention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t about this time, while we separately consider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6.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64:6.1 (722.6) On an average evolutionary planet the six evolutionary races of color appear one by one; the red man is the first to evolve, and for ages he roams the world before the succeeding colored races make their appearance. The simultaneous emergence of all six races on Urantia, *and in one family*, was most unusual.

64:6.2 (723.1) The appearance of the earlier Andonites on Urantia was also something new in Satania. On no other world in the local system has such a race of will creatures evolved in advance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64:6.3 (723.2) 1. *The red man*. These peoples were remarkable specimens of the human race, in

다. 그들은 가장 지성적인 집단이었고, **상익** 자녀들 중에서 부족 문명 및 정부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들은 항상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지켰으며;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여러 배우자를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후대에 이르러,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종 형제들과 매우 심각하게 장기간 분쟁했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을 발명해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선조의 습성 대부분을 이어받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세력이 약화됐으며, 황색 부족들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서 밀려났다.

약 8만 5천 년 전에, 홍인종 중에서 비교적 순수한 남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북 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링** 지역의 지협{地峽}이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 고립됐다. **아시아**로 되돌아간 홍색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유색 인종들과 피가 섞인 그들 혈통 중에서 많은 숫자가, **시베리아**, **중국**, 중앙 **아시아**, **인도**, 및 **유럽** 전역에 남아있었다.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홍색인은 초기에 기원된 자신의 전통과 교훈 대부분을 지녔다. 그들의 직계 조상은, **행성 왕자**가 세운 이 세상 본부의 후기 활동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직후부터, 홍색인은 이 교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으며, 지적이고 영적인 문화에 큰 퇴보가 발생했다. 이 민족은 곧 자기들끼리 다시 너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으므로, 종족 내부의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순수한 홍인종 중에서 남은 자는,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엄청난 쇠퇴로 인해 홍색인의 문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6만5천 년 전에, **오나모나론톤**이 그들의 지도자와 영적 구원자로서 등장했다. 그는 **아메리카** 홍색인에게 일시적 평화가 이뤄지게 했고, **“위대한 영{靈}”**에 대한 경배를 부활시켰다. **오나모나론톤**은 아흔여섯 살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미국삼나무 숲에 본부를 유지했다. 그의 후대 자손 중에서 다수가, **블랙푸트족 인디언** 속에서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모나론톤**의 교훈은 어렵קות한 전통으로 바뀌었다. 내란{內亂}이 다시 시작됐고, 이 위대한 선생의 시대 이후에,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보편적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부족 내부에서 투쟁하는 중에, 비교적 지성적인 종족들이 점점 더 소멸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유능하고 지성적인 홍색인이, 어떤 위대한 문명을 **북 아메리카** 대륙에 세웠을 것이다.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후에, 북쪽에 있는 홍색인은, 후대에 백색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many ways superior to Andon and Fonta. They were a most intelligent group and were the first of the Sangik children to develop a tribal civilization and government. They were always monogamous; even their mixed descendants seldom practiced plural mating.

64:6.4 (723.3) In later times they had serious and prolonged trouble with their yellow brethren in Asia. They were aided by their early invention of the bow and arrow, but they had unfortunately inherited much of the tendency of their ancestors to fight among themselves, and this so weakened them that the yellow tribes were able to drive them off the Asiatic continent.

64:6.5 (723.4) About eigh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comparatively pure remnants of the red race went en masse across to North America, and shortly thereafter the Bering land isthmus sank, thus isolating them. No red man ever returned to Asia. But throughout Siberia, China, central Asia, India, and Europe they left behind much of their stock blended with the other colored races.

64:6.6 (723.5) When the red man crossed over into America, he brought along much of the teachings and traditions of his early origin. His immediate ancestors had been in touch with the later activities of the world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But in a short time after reaching the Americas, the red men began to lose sight of these teachings, and there occurred a great decline in intellectual and spiritual culture. Very soon these people again fell to fighting so fiercely among themselves that it appeared that these tribal wars would result in the speedy extinction of this remnant of the comparatively pure red race.

64:6.7 (723.6) Because of this great retrogression the red men seemed doomed when, about sixty-five thousand years ago, Onamonalonton appeared as their leader and spiritual deliverer. He brought temporary peace among the American red men and revived their worship of the “Great Spirit.” Onamonalonton lived to be ninety-six years of age and maintained his headquarters among the great redwood trees of California. Many of his later descendants have come down to modern times among the Blackfoot Indians.

64:6.8 (723.7) As time passed, the teachings of Onamonalonton became hazy traditions. Internecine wars were resumed, and never after the days of this great teacher did another leader succeed in bringing universal peace among them. Increasingly the more intelligent strains perished in these tribal struggles; otherwise a great civilization would have been built up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by these able and intelligent red men.

64:6.9 (723.8) After crossing over to America from China, the northern red man never again came in

(에스키모는 제외하고) 다른 세계의 영향권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었다. 홍색인이, 후대의 **아담** 혈통과 섞임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홍색인은 백색인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두 종족의 피가 섞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서 하나는 망한다.

2. **주황색인**. 이 인종의 뚜렷한 특색은,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 건축하려는 기묘한 충동이었으며, 심지어 어느 부족이 가장 큰 언덕을 쌓을 수 있는지 보려는 듯이, 거대한 바위 언덕을 쌓으려고 했다. 그들은 진취적 민족은 아니었지만, **행성 왕자**의 학교들에서 많은 것을 습득했고, 지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사절을 파견했다.

주황인종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갈 때, 처음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아프리카**에 안전하게 발을 붙인 적이 없었고, 후대에 도착한 녹색인종에게 전멸당했다.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민족은 대부분의 문화와 영적 토대를 잃었다. 그러나 **폴순타**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제법 고상한 생활이 엄청나게 소생됐으며, 그는 불행한 이 종족의 정신적 기둥이었고, 약 30만 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을 때 그들을 다스렸다.

주황색인과 녹색인 사이에, 마지막 큰 투쟁이 **이집트**의 **나일** 강 유역 하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오래 지속된 이 전쟁은 거의 100년간 유지됐고,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는 극소수의 주황인종만 살아남았다. 이 민족 중에서 흩어진 남은 자들은, 녹색인에게 흡수됐고, 나중에 도착한 남색인들에게 흡수됐다. 그러나 약 10만 년 전에, 하나의 종족으로서의 주황색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3. **황색인**. 원시 황색 부족은, 사냥을 멈추고, 정착된 공동체를 이뤘으며, 농업에 기초한 가정생활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었다. 지적으로는 홍색인보다 다소 뒤떨어졌지만, 인종적인 문명을 조성하는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모든 **상익** 민족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우에 있는 정신을 개발했으므로, 다양한 부족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아시아**로 점차 확장하면서 홍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영적 본부의 영향권으로부터 멀리까지 여행했고, **캘리개스차**의 배신 이후로는 극심한 암흑세계에 빠졌지만, 약 10만 년 전에, **싱글랑톤**이 이 부족들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선포했을 때, 이 부족들에게도 한때 찬란한 시대가 임했었다.

contact with other world influences (except the Eskimo) until he was later discovered by the white man. It was most unfortunate that the red man almost completely missed his opportunity of being upstepped by the admixture of the later Adamic stock. As it was, the red man could not rule the white man, and he would not willingly serve him. In such a circumstance, if the two races do not blend, one or the other is doomed.

64:6.10 (723.9) 2. *The orange man*.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this race was their peculiar urge to build, to build anything and everything, even to the piling up of vast mounds of stone just to see which tribe could build the largest mound. Though they were not a progressive people, they profited much from the schools of the Prince and sent delegates there for instruction.

64:6.11 (724.1) The orange race was the first to follow the coast line southward toward Africa as the Mediterranean Sea withdrew to the west. But they never secured a favorable footing in Africa and were wiped out of existence by the later arriving green race.

64:6.12 (724.2) Before the end came, this people lost much cultural and spiritual ground. But there was a great revival of higher living as a result of the wise leadership of Porshunta, the master mind of this unfortunate race, who ministered to them when their headquarters was at Armageddon some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go.

64:6.13 (724.3) The last great struggle between the orange and the green men occurred in the region of the lower Nile valley in Egypt. This long-drawn-out battle was waged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and at its close very few of the orange race were left alive. The shattered remnants of these people were absorbed by the green and by the later arriving indigo men. But as a race the orange man ceased to exist about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64:6.14 (724.4) 3. *The yellow man*. The primitive yellow tribes were the first to abandon the chase, establish settled communities, and develop a home life based on agriculture. Intellectually they were somewhat inferior to the red man, but socially and collectively they proved themselves superior to all of the Sangik peoples in the matter of fostering racial civilization. Because they developed a fraternal spirit, the various tribes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relative peace, they were able to drive the red race before them as they gradually expanded into Asia.

64:6.15 (724.5) They traveled far from the influences of the spiritual headquarters of the world and drifted into great darkness following the Caligastia apostasy; but there occurred one brilliant age among this people when Singlangton, about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assumed the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인종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들의 부족 간 평화로운 관계 때문이었다. **싱글랑톤**이 나타난 때부터 현대의 **중국**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황인종은 **유란시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숫자가 계속 불어났다. 이 인종은, 후대에 유입된 **아담** 혈통의 유산을, 적지만 진하게 물려받았다.

4. **녹색인**. 녹색인종은 원시인 가운데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단들 가운데 하나였고, 여러 방향으로 광대하게 이주{移住}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들이 흩어지기 전인, 약 35만 년 전에, 이 부족들은 **원타드**의 지도하에 문화가 크게 부흥되는 체험을 했었다.

이 녹색인종은 주로 세 부류로 나뉘었다. 북쪽의 부족들은 정복당해서 노예가 됐고, 황인종과 청인종에게 흡수됐다. 동쪽에 있는 무리들은 그 당시 **인도**의 민족들과 피가 섞였고, 그 잔재가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다. **아프리카**로 들어간 남쪽의 종족은, 자신들과 거의 똑같이 열등한 주황색 동족을 파멸시켰다.

두 집단은 여러 면으로 이런 투쟁 속에서 비등한 호적수{好敵手}였는데, 이는 각 집단에 거인 계열의 종족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들 중에서 큰 사람은 키가 8피트에서 9피트에 이르렀다. 녹색인의 이런 거인 종족은 대체로 남쪽과 **이집트**에 있는 종족으로 국한됐다.

승리를 이룩한 녹색인 중에서 남은 자들은 나중에 남색인종에게 흡수됐는데, 이 남색인종은, 원래 **상기** 인종 분산 중심지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주한 유색{有色} 민족이었다.

5. **청색인**. 청색인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창을 발명했고, 나중에는 현대 문명의 기술 가운데 다수의 기초를 알았다. 청색인은 황색인이 가진 혼{魂} 및 감상과 함께, 홍색인의 두뇌 능력을 소유했다. **아담**의 후손은, 나중까지 존속된 유색 인종들 중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초기 청색인은,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이었던 선생들의 설득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나중에는 그 배반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큰 혼돈에 빠졌다. 다른 원시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배반으로 야기된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향을 완전히 극복한 적이 없었다.

캘리개스차가 타락한 후 500년쯤 지났을 때, 원시 형태의 --그림에도 참되고 유익한-- 교육과 종교가 널리 회복되는 현상이 있었다. 청인종 가운데서 **올란도프**가 위대한 선생이 됐고, 많은 부족

leadership of these tribes and proclaimed the worship of the "One Truth."

64:6.16 (724.6) The survival of comparatively large numbers of the yellow race is due to their intertribal peacefulness. From the days of Singlangton to the times of modern China, the yellow race has been numbered among the more peaceful of the nations of Urantia. This race received a small but potent legacy of the later imported Adamic stock.

64:6.17 (724.7) 4. *The green man*. The green race was one of the less able groups of primitive men, and they were greatly weakened by extensive migrations in different directions. Before their dispersion these tribes experienced a great revival of culture under the leadership of Fantad, some thre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ago.

64:6.18 (724.8) The green race split into three major divisions: The northern tribes were subdued, enslaved, and absorbed by the yellow and blue races. The eastern group were amalgamated with the Indian peoples of those days, and remnants still persist among them. The southern nation entered Africa, where they destroyed their almost equally inferior orange cousins.

64:6.19 (724.9) In many ways both groups were evenly matched in this struggle since each carried strains of the giant order, many of their leaders being eight and nine feet in height. These giant strains of the green man were mostly confined to this southern or Egyptian nation.

64:6.20 (725.1) The remnants of the victorious green men were subsequently absorbed by the indigo race, the last of the colored peoples to develop and emigrate from the original Sangik center of race dispersion.

64:6.21 (725.2) 5. *The blue man*. The blue men were a great people. They early invented the spear and subsequently worked out the rudiments of many of the arts of modern civilization. The blue man had the brain power of the red man associated with the soul and sentiment of the yellow man. The Adamic descendants preferred them to all of the later persisting colored races.

64:6.22 (725.3) The early blue men were responsive to the persuasions of the teach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and were thrown into great confusion by the subsequent perverted teachings of those traitorous leaders. Like other primitive races they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turmoil produced by the Caligastia betrayal, nor did they ever completely overcome their tendency to fight among themselves.

64:6.23 (725.4) About five hundred years after Caligastia's downfall a widespread revival of learning and religion of a primitive sort — but none the less real and beneficial — occurred. Orlandof

이 “최고 우두머리”라는 이름하에, 다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했다. 이 인종이 나중에 **아담** 혈통과 섞임으로써 크게 향상되는 시절까지, 이것은 청색인에게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건이었다.

구석기시대에 대한 **유럽인**의 연구와 탐사 결과는, 주로 고대의 이 청색인의 도구, 뼈, 및 예술 작품의 발굴에 집중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근래까지 **유럽**에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소위 백인종은 바로 이 청색인의 후손이며, 그들은 처음에는 황색인 및 홍색인과 약간 혼합돼서 변경됐고, 나중에는 보라색 인종 중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과 동화됨으로써 크게 발전했다.

6. **남색인종**. 홍색인이 전체 **상위** 민족 중에서 가장 발달됐듯이, 흑색인은 가장 적게 진보했다. 그들은 고지대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맨 나중에 이주했다. 그들은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그 대륙을 차지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서 노예로 강제 이주됐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거기에 남아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고립된 남색 민족들은, 홍색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인종적 진보를, 거의 혹은 전혀 얻지 못했다. **아프리카**에서 홀로 된 남색인종은, 거대한 영적 각성을 체험했던, **오르보논**이 출현한 시대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르보논**이 선포한, “**하나님들의 하나님**”을 나중에는 거의 완전하게 잃어버린 반면, “**알려지지 않은 분**”을 경배하려는 욕구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며; 적어도 수천 년 전까지 어떤 경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뒤쳐져 있지만, 이 남색 민족들은 천상(天上)의 권능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인종과 아주 똑같은 자격을 갖춰 왔다.

이 기간은 다양한 인종들 간에 격렬한 투쟁이 있던 시대였지만, **행성 왕자**의 본부 근처에서는, 좀 더 계몽되고 최근에 가르침 받은 무리들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았으며, 그럼에도 **루시퍼** 반역이 발생함으로써 이 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시기까지, 세계의 인종들은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색다른 민족들은 모두 문화적 및 영적 회복을 때때로 체험하기도 했다. **맨산트**는 **행성 왕자** 시대 이후에 나타난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전체 인종에게 확실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줬던 뛰어난 지도자 및 선생들에 대해서만 여기에 언급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준이 낮은 많은 선생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특히 **캘리게스차** 반역이 발발한 때부터 **아담**이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어두운 시대에, 대체로 그들은, 문화가 있는 문명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

became a great teacher among the blue race and led many of the tribes back to the worship of the true God under the name of the “Supreme Chief.” This was the greatest advance of the blue man until those later times when this race was so greatly upstepped by the admixture of the Adamic stock.

64:6.24 (725.5) The European researches and explorations of the Old Stone Age have largely to do with unearthing the tools, bones, and artwork of these ancient blue men, for they persisted in Europe until recent times. The so-called *white* races of Urantia are the descendants of these blue men as they were first modified by slight mixture with yellow and red, and as they were later greatly upstepped by assimilating the greater portion of the violet race.

64:6.25 (725.6) 6. *The indigo race*. As the red men were the most advanced of all the Sangik peoples, so the black men were the least progressive. They were the last to migrate from their highland homes. They journeyed to Africa, taking possession of the continent, and have ever since remained there except when they have been forcibly taken away, from age to age, as slaves.

64:6.26 (725.7) Isolated in Africa, the indigo peoples, like the red man, received little or none of the race elevation which would have been derived from the infusion of the Adamic stock. Alone in Africa, the indigo race made little advancement until the days of Orvonon, when they experience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While they later almost entirely forgot the “God of Gods” proclaimed by Orvonon, they did not entirely lose the desire to worship the Unknown; at least they maintained a form of worship up to a few thousand years ago.

64:6.27 (725.8) Notwithstanding their backwardness, these indigo peoples have exactly the same standing before the celestial powers as any other earthly race.

64:6.28 (725.9) These were ages of intense struggles between the various races, but near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the more enlightened and more recently taught groups lived together in comparative harmony, though no great cultural conquest of the world races had been achieved up to the time of the serious disruption of this regime by the outbreak of the Lucifer rebellion.

64:6.29 (726.1) From time to time all of these different peoples experienced cultural and spiritual revivals. Mansant was a great teacher of the post-Planetary Prince days. But mention is made only of those outstanding leaders and teachers who markedly influenced and inspired a whole race. With the passing of time, many lesser teachers arose in different regions; and in the aggregate they contributed much to the sum total of those saving influences which prevented the total collapse of

었던 전체 영향력에 크게 공헌했다.

공간 세계들에서, 셋 또는 여섯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려는 계획에는, 유익하고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비록 이런 이유 전체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를 환기 시킨다:

1. 다양성은, 자연도태의 폭넓은 작용, 즉 우세한 혈통들이 구별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 요소다.

2. 더 강하고 더 우수한 인종은, 서로 다른 이 인종들이 우수한 유전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양한 민족의 피가 섞임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히 섞임으로써, 그런 혼혈 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의 인종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종적 상황 하에 있는 **유란시아**에서 그런 실험을 시행하려고 시도한다면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3. 인종들이 분화(分化)됨으로써 경쟁이 건전하게 자극받는다.

4. 인종 간에 차이 나는 지위, 그리고 각 인종 안에서 생기는 집단 간에 차이 나는 지위는, 인간의 관용과 이타주의(利他主義)가 발달하는 데 필수 요소다.

5. 인간 종족이 균일하게 되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의 민족들이 높은 수준의 영적 발달을 달성하기 전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유색 인종의 분산

상익 가족의 유색 후손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인근에 있는 지방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쓸 무렵에, 다섯 번째 빙하, 즉 지질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세 번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서 남쪽으로 상당히 전진했다. 초기의 이 유색 인종들은, 주어진 빙하기의 혹독함과 곤궁함으로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됐다. 이 빙하는 **아시아**에서 무척 확장돼서, 수천 년 동안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들은 후대에 **아라비아** 지역이 융기된 결과로 **지중해**가 퇴각할 때에야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상익** 민족들은, 서로 다른 인종들 간에 일찍부터 서로 보여 왔던, 특유하지만 자연스런 대립 현상이 있었음에도, 거의 10만 년 동안 구릉지대 근처에 퍼져 있었고, 어느 정도 서로 혼합됐다.

cultural civilization, especially during the long and dark ages between the Caligastia rebellion and the arrival of Adam.

64:6.30 (726.2) There are many good and sufficient reasons for the plan of evolving either three or six colored races on the worlds of space. Though Urantia mortals may not be in a position fully to appreciate all of these reasons, we would call attention to the following:

64:6.31 (726.3) 1. Variety is indispensable to opportunity for the wide functioning of natural selection, differential survival of superior strains.

64:6.32 (726.4) 2. Stronger and better races are to be had from the interbreeding of diverse peoples when these different races are carriers of superior inheritance factors. And the Urantia races would have benefited by such an early amalgamation provided such a conjoint people could have been subsequently effectively upstepped by a thoroughgoing admixture with the superior Adamic stock. The attempt to execute such an experiment on Urantia under present racial conditions would be highly disastrous.

64:6.33 (726.5) 3. Competition is healthfully stimulated by diversification of races.

64:6.34 (726.6) 4. Differences in status of the races and of groups within each race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tolerance and altruism.

64:6.35 (726.7) 5. Homogeneity of the human race is not desirable until the peoples of an evolving world attain comparatively high levels of spiritual development.

7. DISPERSION OF THE COLORED RACES

64:7.1 (726.8) When the colored descendants of the Sangik family began to multiply, and as they sought opportunity for expansion into adjacent territory, the fifth glacier, the third of geologic count, was well advanced on its southern drift over Europe and Asia. These early colored races were extraordinarily tested by the rigors and hardships of the glacial age of their origin. This glacier was so extensive in Asia that for thousands of years migration to eastern Asia was cut off. And not until the later retreat of the Mediterranean Sea, consequent upon the elevation of Arabia, was it possible for them to reach Africa.

64:7.2 (726.9) Thus it was that for almost one hundred thousand years these Sangik peoples spread out around the foothills and mingled together more or less, notwithstanding the peculiar but natural antipathy which early manifested itself between the different races.

행성 왕자 시대와 **아담** 시대 사이에, 지금까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지역들 중에서 **인도**가 가장 다양한 주민의 고향이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녹색, 주황색, 및 남색 인종이 너무 많이 혼합됐다. 이런 2차 **상익** 민족들은, 남쪽 지역에서 비교적 쉽고 적절하게 적응했으며, 그들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아프리카**로 이주했다. 1차 **상익** 민족들은 우수한 인종이었고, 열대 지방을 멀리했으며, 홍색인은 북동쪽을 향해서 **아시아**로 건너갔고 황색인이 바로 뒤를 따라간 반면, 청색인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홍색인은 일찍이 북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퇴각하는 빙하를 뒤따랐으며, **인도**에 있는 고지대를 돌아가면서 북동쪽 **아시아** 전역을 장악했다. 황색 부족들이 그들 바로 뒤에 따라갔고, 나중에는 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내, **북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했다.

비교적 순수한_핏줄인 홍인종 생존자들이 **아시아**를 떠났을 때, 그들 중에는 11개 부족이 있었고, 7천 명 약간 넘는 남녀와 아이들이 있었다. 이 부족들을 따라, 혼혈 혈통의 소규모 집단들 셋이 동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무리는, 주황인종과 청인종이 혼합된 것이었다. 이 세 집단은 홍색인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이룬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로 들어갔고, 그들은 나중에 거기서, 황색인과 홍색인이 혼합된 작은 집단과 합류했다. 이 민족들은 서로 배우자 관계를 이뤄서 하나의 새로운 혼혈 인종을 형성했는데, 그들은 순수한_핏줄의 홍색인보다도 전쟁을 훨씬 싫어했다. 5천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혼혈 인종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 아메리카**에 각각 별도의 문명을 세웠다. **남 아메리카** 분파는 아주 희미하게 **아담**의 피를 받았다.

초기의 홍색인과 황색인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섞였고, 이 혼합으로 태어난 후손은 동쪽 방향과 남부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했으며,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황인종에게 쫓겨서, 여러 반도와 근처에 있는 바다의 섬들로 들어갔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인이다.

황인종은 동부 **아시아**의 중앙 지대를 계속 지배해 왔다. 여섯 유색인종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황색인이 때때로 인종 간 전쟁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홍색, 녹색, 및 주황색인이 멸종 위기에 이를 정도로 벌였던 끊임없고 잔인한 전쟁보다는 훨씬 덜했다. 이 세 인종은, 다른 인종들로 구성된 적에게 마침내 멸종당하기 전에, 사실상 자기들 스스로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섯 번째 빙하가 **유럽** 남부 멀리까지 확장되지 않았으므로, 이 **상익** 민족들이 북서쪽으로 이

64:7.3 (726.10) Between the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Adam, India became the home of the most cosmopolitan population ever to be found on the face of the earth. But it was unfortunate that this mixture came to contain so much of the green, orange, and indigo races. These secondary Sangik peoples found existence more easy and agreeable in the southlands, and many of them subsequently migrated to Africa. The primary Sangik peoples, the superior races, avoided the tropics, the red man going northeast to Asia, closely followed by the yellow man, while the blue race moved northwest into Europe.

64:7.4 (727.1) The red men early began to migrate to the northeast, on the heels of the retreating ice, passing around the highlands of India and occupying all of northeastern Asia. They were closely followed by the yellow tribes, who subsequently drove them out of Asia into North America.

64:7.5 (727.2) When the relatively pure-line remnants of the red race forsook Asia, there were eleven tribes, and they numbered a little over seven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These tribes were accompanied by three small groups of mixed ancestry, the largest of these being a combination of the orange and blue races. These three groups never fully fraternized with the red man and early journeyed southward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 where they were later joined by a small group of mixed yellows and reds. These peoples all intermarried and founded a new and amalgamated race, one which was much less warlike than the pure-line red men. Within five thousand years this amalgamated race broke up into three groups, establishing the civilizations respectively of Mexico,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The South American offshoot did receive a faint touch of the blood of Adam.

64:7.6 (727.3) To a certain extent the early red and yellow men mingled in Asia, and the offspring of this union journeyed on to the east and along the southern seacoast and, eventually, were driven by the rapidly increasing yellow race onto the peninsulas and near-by islands of the sea. They are the present-day brown men.

64:7.7 (727.4) The yellow race has continued to occupy the central regions of eastern Asia. Of all the six colored races they have survived in greatest numbers. While the yellow men now and then engaged in racial war, they did not carry on such incessant and relentless wars of extermination as were waged by the red, green, and orange men. These three races virtually destroyed themselves before they were finally all but annihilated by their enemies of other races.

64:7.8 (727.5) Since the fifth glacier did not extend so far south in Europe, the way was partially open for these Sangik peoples to migrate to the northwest;

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빙하가 물러감에 따라서, 청색인은 소수의 다른 인종 집단과 함께 **안돈** 부족의 옛 자취를 따라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연달아 물결을 이뤄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 대륙 대부분을 점령했다.

유럽에서 그들은 곧 **네안데르탈** 후손과 대면하게 됐는데, **안돈**이 그들 전체의 공통된 초기 조상이었다. 비교적 더 오래된 **유럽**의 이 **네안데르탈인**은 빙하에 밀려서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침입해 들어오는 동족인 **상익** 부족들과 신속히 대면하고 흡수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상익** 부족들은 초기에 평야에서 살던 열등{劣等}한 **안돈** 후손들보다 더 지성적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보다 훨씬 우수했으며; **네안데르탈** 민족들이 이 **상익** 부족들과 섞임으로써, 더 오래된 그 종족은 즉시 진보를 이루게 됐다. **상익** 인종의 피가, 특히 청색인의 피가 이렇게 주입됐기 때문에, **네안데르탈** 민족들은 현저히 발전했고,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 전역{全域}을 휩쓴, 갈수록 더 영리한 부족들이 잇달아 물결처럼 밀려온 데서 나타났다.

그 뒤에 있었던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에, 이 새로운 **네안데르탈** 인종은 **영국**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다. 청인종 중에서 남은 자들이 옛 **페르시아** 반도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는 어떤 다른 부족들, 특히 주로 황색인과 혼합했으며; 그 결과로 피가 섞인,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의 보라색 인종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룩한 인종이, 현대 **아랍인** 가운데 거무스름한 유목민으로 남아 있다.

현대 민족들의 **상익** 계보{系譜}를 추적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나중엔 **아담**의 피와 섞임으로써 인종적 혈통의 후기 개량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수한 인종들은, 북쪽 기후, 즉 온화한 기후를 찾았으며, 한편 주황색, 녹색, 및 남색 인종들은 서쪽 방향으로 퇴각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분리시키는, 새로 융기된 연결육지를 지나,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물러갔다.

상익 민족들 중에서, 그 인종이 원래 위치했던 중심지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주한 인종은 남색인이었다. 그 무렵에 녹색인은 **이집트**에서 주황인종을 전멸시켰으며, 그렇게 하는 중에 자신도 세력이 크게 약화됐고, 거대한 무리의 흑색 이주자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틴**을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강한 이 남색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됐는데, 그때 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으므로, 순전히 그 힘으로 녹색인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 남색인종은 남은 주황색 사람과 녹색인 혈통 대부분을 흡수했고, 어떤 남색 부족들은 이 인종 혼합으로 말미암아 눈에 띄는 정도로 진보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주황색인이, 다음에는 녹색

and upon the retreat of the ice the blue men, together with a few other small racial groups, migrated westward along the old trails of the Andon tribes. They invaded Europe in successive waves, occupying most of the continent.

64:7.9 (727.6) In Europe they soon encountered the Neanderthal descendants of their early and common ancestor, Andon. These older European Neanderthals had been driven south and east by the glacier and thus were in position quickly to encounter and absorb their invading cousins of the Sangik tribes.

64:7.10 (727.7) In general and to start with, the Sangik tribes were more intelligent than, and in most ways far superior to, the deteriorated descendants of the early Andonic plainsmen; and the mingling of these Sangik tribes with the Neanderthal peoples led to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e older race. It was this infusion of Sangik blood, more especially that of the blue man, which produced that marked improvement in the Neanderthal peoples exhibited by the successive waves of increasingly intelligent tribes that swept over Europe from the east.

64:7.11 (727.8) During the following interglacial period this new Neanderthal race extended from England to India. The remnant of the blue race left in the old Persian peninsula later amalgamated with certain others, primarily the yellow; and the resultant blend, subsequently somewhat upstepped by the violet race of Adam, has persisted as the swarthy nomadic tribes of modern Arabs.

64:7.12 (728.1) All efforts to identify the Sangik ancestry of modern peoples must take into account the later improvement of the racial strains by the subsequent admixture of Adamic blood.

64:7.13 (728.2) The superior races sought the northern or temperate climes, while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successively gravitated to Africa over the newly elevated land bridge which separated the westward retreating Mediterranean from the Indian Ocean.

64:7.14 (728.3) The last of the Sangik peoples to migrate from their center of race origin was the indigo man. About the time the green man was killing off the orange race in Egypt and greatly weakening himself in so doing, the great black exodus started south through Palestine along the coast; and later, when these physically strong indigo peoples overran Egypt, they wiped the green man out of existence by sheer force of numbers. These indigo races absorbed the remnants of the orange man and much of the stock of the green man, and certain of the indigo tribes were considerably improved by this racial amalgamation.

64:7.15 (728.4) And so it appears that Egypt was first

색인이, 그 뒤로는 남색(곧 검은색)인이,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남색, 청색, 및 변경된 녹색인의 혼혈 인종이 **이집트**를 지배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유럽**의 청색인, 그리고 **아라비아**의 혼혈된 인종들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먼 남쪽 지방으로 남색인종을 몰아냈다.

상익의 이주가 막을 내리게 될 때, 녹색인종과 주황인종은 사라졌고, 홍색인은 **북 아메리카**를 고수했으며, 황색인은 동부 **아시아**에, 청색인은 **유럽**에, 그리고 남색인종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도**는 2차 **상익** 인종들의 혼혈 인종과, 갈색인, 즉 홍색인과 황색인의 혼혈 종족을 받아쫓고, **아시아** 해안에서 많은 섬을 차지했다. 상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혼혈 인종이, **남 아메리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순수한 **안돈족** 속들이, **유럽**의 최고 북쪽 지역,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및 **북 아메리카** 북동쪽에서 살았다.

빙하가 가장 먼 지역까지 확장돼 있는 동안, 서쪽 끝에 있던 **안돈** 부족들은 바로 바다 가까운 곳까지 밀려났다. 그들은 현재 **영국** 섬 남쪽으로 뻗은 좁은 띠 모양의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빙하 확장에 대한 구전(口傳)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출현했을 때 바다로 떠나게 됐다. 그들은 바다를 탐험한 최초의 종족이 됐다. 그들은 배를 만들었고, 위협하는 빙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이슬랜드**에 도착했고, 더러는 **그린랜드**에 도착했지만, 대부분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전멸했다.

약 8만 년 조금 더 전에, 홍색인이 **북 아메리카** 북쪽 지대로 들어간 후 얼마 안 돼서, **유란시아** 원주민 가운데 이 **에스키모** 후손은, 얼어붙은 **북해**와 확장되는 **그린랜드**의 지역적인 얼음 덩어리에 밀려서, 더 나은 땅, 즉 새로운 고향을 찾게 됐으며; 그들은 다행히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당시에 **그린랜드**와 **북 아메리카** 북쪽 땅 덩어리를 이 해협이 갈라놓고 있었다. 그들은 홍색인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 약 2,100년이 지났을 때, 그 대륙에 도착했다. 그 후에, 청색인과 섞인 혈통의 소수의 사람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후대의 **에스키모**들과 혼합됐고, 이렇게 합쳐진 사람들은 **에스키모** 부족들보다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약 5천 년 전에, 고립된 **에스키모** 집단과 **인디언** 부족이, **허드슨만** 남동쪽 해안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 두 부족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됐으나, 곧 서로 결혼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 **에스키모인**은 결국 숫자가 훨씬 많은 홍색인에게 흡수됐다. 그리고 이것은, 약 1,000년 전에 백색인이 우연히 **대서양** 해안의 땅에 상륙할 때까지, **북 아메리카**의 홍색인이 다른 어떤 인간 혈통과 접촉한 유일한 경우였다.

dominated by the orange man, then by the green, followed by the indigo (black) man, and still later by a mongrel race of indigo, blue, and modified green men. But long before Adam arrived, the blue men of Europe and the mixed races of Arabia had driven the indigo race out of Egypt and far south on the African continent.

64:7.16 (728.5) As the Sangik migrations draw to a close, the green and orange races are gone, the red man holds North America, the yellow man eastern Asia, the blue man Europe, and the indigo race has gravitated to Africa. India harbors a blend of the secondary Sangik races, and the brown man, a blend of the red and yellow, holds the islands off the Asiatic coast. An amalgamated race of rather superior potential occupies the highlands of South America. The purer Andonites live in the extreme northern regions of Europe and in Iceland, Greenland, and northeastern North America.

64:7.17 (728.6) During the periods of farthest glacial advance the westernmost of the Andon tribes came very near being driven into the sea. They lived for years on a narrow southern strip of the present island of England. And it was the tradition of these repeated glacial advances that drove them to take to the sea when the sixth and last glacier finally appeared. They were the first marine adventurers. They built boats and started in search of new lands which they hoped might be free from the terrifying ice invasions. And some of them reached Iceland, others Greenland, but the vast majority perished from hunger and thirst on the open sea.

64:7.18 (728.7) A little more than eighty thousand years ago, shortly after the red man entered northwestern North America, the freezing over of the north seas and the advance of local ice fields on Greenland drove these Eskimo descendants of the Urantia aborigines to seek a better land, a new home; and they were successful, safely crossing the narrow straits which then separated Greenland from the northeastern land masses of North America. They reached the continent about twenty-one hundred years after the red man arrived in Alaska. Subsequently some of the mixed stock of the blue man journeyed westward and amalgamated with the later-day Eskimos, and this union was slightly beneficial to the Eskimo tribes.

64:7.19 (728.8) About five thousand years ago a chance meeting occurred between an Indian tribe and a lone Eskimo group on the southeastern shores of Hudson Bay. These two tribes found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very soon they intermarried with the result that these Eskimos were eventually absorbed by the more numerous red men. And this represents the only contact of the North American red man with any other human stock down to about one thousand

이런 초기 투쟁의 특징은 용기, 용맹, 및 영웅심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희의 초기 조상의 순수하고 강건한 특징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후대의 인종들에게서 사라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진보된 문명이 제공하는 많이 개선된 것들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때로는 숭고함과 웅대함에 가까웠던, 너희의 옛 조상이 보여줬던 훌륭한 끈기와 훌륭한 헌신을 다시 보고 싶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years ago, when the white man first chanced to land on the Atlantic coast.

64:7.20 (729.1) The struggles of these early ages were characterized by courage, bravery, and even heroism. And we all regret that so many of those sterling and rugged traits of your early ancestors have been lost to the later-day races. While we appreciate the value of many of the refinements of advancing civilization, we miss the magnificent persistency and superb devotion of your early ancestors, which oftentimes bordered on grandeur and sublimity.

64:7.21 (729.2) [Presented by a Life Carrier resident on Urantia.]

제 65편. 진화에 대한 전반적 감독

⇨ 064

유란시아 책

06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65편

진화에 대한 전반적 감독

섹션

소개

1. 생명 운반자의 역할
2. 진화의 개관
3. 진화의 촉진
4. 유란시아 모형
5. 생명체_진화의 변천
6. 생명체의 진화 기법
7. 진화하는 정신 수준
8.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화

PAPER 65

THE OVERCONTROL OF
EVOLUTION

SECTIONS

Introduction

1. Life Carrier Functions
2. The Evolutionary Panorama
3. The Fostering of Evolution
4. The Urantia Adventure
5. Life-Evolution Vicissitudes
6. Evolutionary Techniques of Life
7. Evolutionary Mind Levels
8. Evolution in Time and Space

소개

기본적인 진화하는 물질 생명체는--곧 정신 이전{以前}의 생명체는--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임명된 **생명 운반자**들의 활발한 보살핌과 함께, **일곱 으뜸 영**의 사역으로 전달된_생명체다. 이렇게 창조성 기능이 삼중{三重}으로 협조한 결과로, 유기체의 물리적 정신 수용력이 발휘된다--이것은 외부 환경의 충동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부의 충동, 즉 유기체의 정신 자체에서 기원되는 자극에 대해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물질 체제다.

그때, 생명체 생성과 진화에는 세 가지 뚜렷한 수준이 있다:

1. 물리적_에너지 분야 --정신의_수용력이 생기게 함.
2. 보조 영들의 정신 사역 --영{靈}의 수용력에 영향을 줌.
3. 필사 정신의 영 재능 --**사고 조율사**의 증여가 절정에 이르도록 함.

INTRODUCTION

65:0.1 (730.1) BASIC evolutionary material life — premind life — is the formulatio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life-impartation ministr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conjunction with the active ministration of the ordained Life Carriers. As a result of the co-ordinate function of this threefold creativity there develops organismal physical capacity for mind — material mechanisms for intelligent reaction to external environmental stimuli and, later on, to internal stimuli, influences taking origin in the organismal mind itself.

65:0.2 (730.2) There are, then, three distinct levels of life production and evolution:

65:0.3 (730.3) 1. The physical-energy domain — mind-capacity production.

65:0.4 (730.4) 2. The mind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 impinging upon spirit capacity.

65:0.5 (730.5) 3. The spirit endowment of mortal mind — culminating in Thought Adjuster bestowal.

기계적이고_학습력_없는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은 물리 통제관들의 영역이다. 보조 정신_영들은, 순응하는 정신 유형, 즉 비기계적이고_학습력있는 정신 유형을--곧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기체의 반응 체제를--활성화시키고 조절한다. 그리고 영{靈} 보조체들이 정신의 잠재력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생명 운반자**들은 인간의 의지가--즉 **하나님**을 아는 역량 그리고 그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 는 바로 그 순간까지, 진화 과정의 환경 양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임의로 통제한다.

생명 운반자, 물리 통제관, 및 영 보조체들의 통합된 기능발휘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는 --**유란시아**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반드시 의도하여 생긴 것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다.

1. 생명 운반자의 역할

생명 운반자들은 개성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았는데, 극히 일부 계층의 피조물만이 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우주에 있는 **이 아들**들은 세 가지 다른 존재 양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중간_양태 **아들**들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이 기원된 상태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실존 단계에 있는 **생명 운반자**는,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 입자들을, 살아있는 존재 단위들이 되도록 조종하는 자로서, 전기화학{電氣化學} 영역에서는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다.

생명 운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작용한다:

1. 물리적인 전기화학 수준.
2. 유사{類似}_모론시아 실존의 통상적 중간_양태.
3. 약간영적인 진보된 수준.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 이식에 참여할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행업무를 위한 장소를 선택한 후에, 그들은 **생명 운반자**의 변질을 담당하는 천사장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집단은 열 개의 다양한 인격체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물리 통제관과 그 동역자들이 포함돼 있고, **태고 항존자들**의 허락과 **가브리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격으로 집행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주재한다. 적합하게 회로화 되면, 이 존재들은 **생명 운반자**들 속에 그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들이 하여금 물리적인 전기화학 수준에서 즉각 작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생명체 원형{原型}이 형성되고, 물질적 조직

65:0.6 (730.6) The mechanical-nonteachable levels of organismal environmental response are the domain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The adjutant mind-spirits activate and regulate the adaptative or nonmechanical-teachable types of mind — those response mechanisms of organisms capable of learning from experience. And as the spirit adjutants thus manipulate mind potentials, so do the Life Carriers exercise considerable discretionar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evolutionary processe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 the ability to know God and the power of choosing to worship him.

65:0.7 (730.7) It is the integrated functioning of the Life Carri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spirit adjutants that conditions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on the inhabited worlds. And this is why evolution — on Urantia or elsewhere — is always purposeful and never accidental.

1. LIFE CARRIER FUNCTIONS

65:1.1 (730.5) The Life Carriers are endowed with potentials of personality metamorphosis which but few orders of creatures possess. These Sons of the local universe are capable of functioning in three diverse phases of being. They ordinarily perform their duties as mid-phase Sons, that being the state of their origin. But a Life Carrier in such a stage of existence could not possibly function in the electrochemical domains as a fabricator of physical energies and material particles into units of living existence.

65:1.2 (730.6) Life Carriers are able to function and do function on the following three levels:

65:1.3 (730.7) 1. The physical level of electrochemistry.

65:1.4 (730.8) 2. The usual mid-phase of quasi-morontial existence.

65:1.5 (730.9) 3. The advanced semispiritual level.

65:1.6 (731.1) When the Life Carriers make ready to engage in life implantation, and after they have selected the sites for such an undertaking, they summon the archangel commission of Life Carrier transmutation. This group consists of ten orders of diverse personalities, including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and is presided over by the chief of archangels, who acts in this capacity by the mandate of Gabriel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ncients of Days. When these beings are properly encircuited, they can effect such modifications in the Life Carriers as will enable them immediately to function on the physical levels of electrochemistry.

65:1.7 (731.2) After the life patterns have been

이 적절하게 완비된 후에, 생명 전파와 관계되는 초물질적 힘이 즉시 활동하게 되며,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다. 그 후에 **생명 운반자**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중간-양태의 인격 실존으로 즉시 돌아오며, 비록 새로운 원형의 살아있는 물질을 유기체로 만들 수 있는--즉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박탈당했음에도,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단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진화하는 유기체들을 유도할 수 있다.

유기체의 진화가 어떤 과정을 마치고, 인간 유형의 자유 의지가 가장 높은 진화 유기체 속에 나타나게 되면, **생명 운반자**들은 그 행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단념하겠다는 서약; 즉, 유기체 진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성에 남아서, 의지를 지닌, 새롭게 진화된 피조물을 양육하도록 위탁받아서, 앞으로 자문가가 되기로 선택한 **생명 운반자**들이 그런 자발적 서약을 한 후에, **저녁 별**들의 우두머리가 주재하는 12인 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체계 주권자**의 권위로, 그리고 **가브리엘**의 허락 하에 활동하며; 이 **생명 운반자**들은 셋째 양태의 인격 실존으로--곧 약간영적 존재 수준으로-- 즉시 변형된다. 그리고 나는 **유란시아**에서 **안돈**과 **원타** 시대 이후로 줄곧, 이런 셋째 실존 양태에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우주가 빛과 생명에 안정될 때, 넷째 단계의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겠지만, 이런 바람직하고 진보된 상태를 어떤 기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밝혀진 적이 없다.

2. 진화의 개관

해초{海草}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 창조물의 지배자로 승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적 투쟁을 겪고 정신이 살아남은 정말로 소설 같은 사건이다. 사람의 최초 조상은, 글자 그대로 대양 바닥의 점액{粘液}과 진흙이었는데, 그것들은 고대의 내륙해의 광대한 해안선에서, 완만하고 물이 따뜻한 만{灣}과 개펄 속에 있었고, **유란시아**의 바로 그 물 속에, **생명 운반자**들이 세 개의 독립된 생명 이식{利息}을 정착시켰다.

결과적으로 동물 비슷한 어중간한 유기체가 된, 그 획기적 변화에 참여했던 초기 유형의 해양 식물 중{種} 중에서, 극소수만이 오늘날까지 실존하고 있다. 해면체는 초기의 이런 중간 유형 중에서 살아남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이 유기체를 통해 식물에서 동물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초기의 이 과도기 형태들은, 현재의 해면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했으며; 정말로 어중간한 유기체였지만--곧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었지만-- 결국 진짜 동물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하

formulated and the material organizations have been duly completed, the supermaterial forces concerned in life propagation become forthwith active, and life is existent. Whereupon the Life Carriers are immediately returned to their normal mid-phase of personality existence, in which estate they can manipulate the living units and maneuver the evolving organisms, even though they are shorn of all ability to organize — create — new patterns of living matter.

65:1.8 (731.3) After organic evolution has run a certain course and free will of the human type has appeared in the highest evolving organisms, the Life Carriers must either leave the planet or take renunciation vows; that is, they must pledge themselves to refrain from all attempts further to influence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And when such vows are voluntarily taken by those Life Carriers who choose to remain on the planet as future advisers to those who shall be intrusted with the fostering of the newly evolved will creatures, there is summoned a commission of twelve, presided over by the chief of the Evening Stars, acting by authority of the System Sovereign and with permission of Gabriel; and forthwith these Life Carriers are transmuted to the third phase of personality existence — the semispiritual level of being. And I have functioned on Urantia in this third phase of existence ever since the times of Andon and Fonta.

65:1.9 (731.4) We look forward to a time when the universe may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to a possible fourth stage of being wherein we shall be wholly spiritual, but it has never been revealed to us by what technique we may attain this desirable and advanced estate.

2. THE EVOLUTIONARY PANORAMA

65:2.1 (731.5) The story of man's ascent from seaweed to the lordship of earthly creation is indeed a romance of biologic struggle and mind survival. Man's primordial ancestors were literally the slime and ooze of the ocean bed in the sluggish and warm-water bays and lagoons of the vast shore lines of the ancient inland seas, those very waters in which the Life Carriers established the three independent life implantations on Urantia.

65:2.2 (731.6) Very few species of the early types of marine vegetation that participated in those epochal changes which resulted in the animallike borderland organisms are in existence today. The sponges are the survivors of one of these early midway types, those organisms through which the gradual transition from the vegetable to the animal took place. These early transition forms, while not identical with modern sponges, were much like them; they were true borderline organisms —

도록 만들었다.

박테리아는 매우 원시적인 성질의 단순한 식물 유기체이고, 초기에 시작되던 생명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기생(寄生)하는 습성은 오히려 어느 정도 퇴화했다. 많은 곰팡이 역시, 진화에서 퇴화 작용을 대표하며, 엽록소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잃어버리고 기생성을 다소 나타내는 식물이 되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대부분과, 그와 유사한 다수(多數)의 바이러스는, 이 변질된 기생 곰팡이 무리에 속한다. 중간에 끼어있는 시대에, 방대한 전체 식물 생명체 왕국이, 박테리아와 함께, 같은 선조로부터 파생해서 내려왔다.

상류 원생동물 유형의 동물 생명체가 곧 출현했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일 세포 동물 유기체인 아메바가, 이런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오고 있지만,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아메바는 생명체 진화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성취를 이뤘을 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 이 미세한 생물 및 그 원생동물 사촌들과 동물 세계의 관계는, 박테리아와 식물계(植物界)의 관계와 같으며, 이것들은 생명체의 분화(分化)에서 초기에 진화하는 첫 걸음을 대표했고, 차후에 발전하는 데 실패했다.

오래지 않아서, 초기 단세포 동물 유형들은 처음에는 볼복스 모양으로, 그리고 곧 히드라와 해파리 계통을 따라서, 서로 군(群)을 이뤄 결합했다. 훨씬 뒤에는, 불가사리, 돌백합, 성게, 해삼, 지네, 곤충, 거미, 갑각류, 그리고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렁이와 거머리 류(類)로 진화했으며, 연체동물이—곧 굴, 낙지, 달팽이가—그 뒤를 이었다. 수백 가지 종(種)이 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길고 긴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만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 그런 진보되지 못한 표본들은, 나중에 나타난 물고기 과(科)와 함께, 오늘날 정제된 유형의 초기 하등동물을 대표하며, 이것들은 생명체 파생 계통에서 진보하지 못한 부분들이다.

최초의 척추동물, 즉 물고기가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갖춰졌다. 이 물고기 과로부터 두 가지 독특한 변경체가 나타났는데, 개구리와 도롱뇽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동물 생명체 속에서 일련의 점진적 분화(分化)를 시작하여, 마침내 바로 사람으로서 정점에 도달했다.

개구리는 가장 초기의 인간-종족 선조 중에서 살아남은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 역시 발전되지 못하고, 그 먼 옛날과 거의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 시조 인종들의 선조 중에서, 개구리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종(種)이다. 인간 종족의 선조 가운데, 개구리

neither vegetable nor animal — but they eventually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ue animal forms of life.

65:2.3 (732.1) The bacteria, simple vegetable organisms of a very primitive nature, are very little changed from the early dawn of life; they even exhibit a degree of retrogression in their parasitic behavior. Many of the fungi also represent a retrograde movement in evolution, being plants which have lost their chlorophyll-making ability and have become more or less parasitic. The majority of disease-causing bacteria and their auxiliary virus bodies really belong to this group of renegade parasitic fungi. During the intervening ages all of the vast kingdom of plant life has evolved from ancestors from which the bacteria have also descended.

65:2.4 (732.2) The higher protozoan type of animal life soon appeared, and appeared *suddenly*. And from these far-distant times the ameba, the typical single-celled animal organism, has come on down but little modified. He disports himself today much as he did when he was the last and greatest achievement in life evolution. This minute creature and his protozoan cousins are to the animal creation what bacteria are to the plant kingdom; they represent the survival of the first early evolutionary steps in life differentiation together with *failure of subsequent development*.

65:2.5 (732.3) Before long the early single-celled animal types associated themselves in communities, first on the plan of the Volvox and presently along the lines of the Hydra and jellyfish. Still later there evolved the starfish, stone lilies, sea urchins, sea cucumbers, centipedes, insects, spiders, crustaceans, and the closely related groups of earthworms and leeches, soon followed by the mollusks — the oyster, octopus, and snail. Hundreds upon hundreds of species intervened and perished; mention is made only of those which survived the long, long struggle. Such nonprogressive specimens, together with the later appearing fish family, today represent the stationary types of early and lower animals, branches of the tree of life which failed to progress.

65:2.6 (732.4) The stage was thus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first backboned animals, the fishes. From this fish family there sprang two unique modifications, the frog and the salamander. And it was the frog which began that series of progressive differentiations in animal life that finally culminated in man himself.

65:2.7 (732.5) The frog is one of the earliest of surviving human-race ancestors, but it also failed to progress, persisting today much as in those remote times. The frog is the only species ancestor of the early dawn races now living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human race has no

와 **에스키모**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멸종했다.

개구리에서 **파충류**가 나왔고, 거대한 동물 군을 이루다가 거의 멸종됐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류 전체 및 수많은 다른 종류의 포유동물을 기원시켰다.

모든 선행인류 진화 단계에서 가장 큰 한 번의 도약(跳躍)을 이룬 것은, 아마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왔을 때일 것이다. 오늘날 조류 유형은--곧 독수리, 오리, 비둘기, 및 타조 등은-- 모두 먼 옛날의 수많은 파충류에서 유래했다.

개구리 과에서 유래된 파충류 계{界} 중에서 오늘날 살아남은 것은 네 분야로 대별되는데: 뱀과 도마뱀, 그리고 그 동류인 악어와 거북이, 이 두 부문은 진보하지 못했으며; 조류는 일부 진보를 이뤘고, 넷째는 포유동물의 선조이고 인간 종족의 직계 혈통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멸되는 파충류의 거대함이 코끼리와 마스토돈을 통해 조금 나타났고, 그들의 독특한 형태가 경충 경충 뛰는 캥거루로 남아 있다.

유란시아에는 오직 14개의 문{門}이 나타났는데, 어류{魚類}가 마지막을 장식했고, 조류와 포유동물 이후에는 새로운 부류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다.

민첩하고 체구가 작지만 비교적 큰 뇌를 가진 육식성 파충류 공룡으로부터,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갑자기** 생겼다. 이 포유동물은, 급속히 여러 상이한 방향으로 발달했는데, 현대의 혼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고래와 물개 같은 해양 생명체, 그리고 박쥐 계통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형들로도 진화했다.

사람은, 동서 방향의 격리된 고대{古代} 바다에서 서쪽 이식지 생명체로부터 주로 파생된, 고등 포유동물로부터 그렇게 진화했다. 동부와 중부 집단의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선행인류 수준의 동물 실존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초기에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생명체 설치를 위한 동부 중심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포 원형질 유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잃어버려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복구시키는 능력을 영구히 잃어버렸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선행인류의 지성 상태를 달성하기에 실패했다.

이 동부 집단에서 정신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의 질{質}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매우 뚜렷하게 열등했으므로, **생명 운반자**들은, 직속 상관들의 허락 하에, 환경을 조종해서, 진화하는 생명체 가운데 이 열등한 선행인류 종족을 더욱 제한시켰다. 겉으로 보기에 이 열등한 피조물 집단들의 소멸이 전적으로 우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의도한 것이었다.

surviving ancestry between the frog and the Eskimo.

65:2.8 (732.6) The frogs gave rise to the Reptilia, a great animal family which is virtually extinct, but which, before passing out of existence, gave origin to the whole bird family and the numerous orders of mammals.

65:2.9 (732.7) Probably the greatest single leap of all prehuman evolution was executed when the reptile became a bird. The bird types of today — eagles, ducks, pigeons, and ostriches — all descended from the enormous reptiles of long, long ago.

65:2.10 (732.8) The kingdom of reptiles, descended from the frog family, is today represented by four surviving divisions: two nonprogressive, snakes and lizards, together with their cousins, alligators and turtles; one partially progressive, the bird family, and the fourth, the ancestors of mammals and the direct line of descent of the human species. But though long departed, the massiveness of the passing Reptilia found echo in the elephant and mastodon, while their peculiar forms were perpetuated in the leaping kangaroos.

65:2.11 (733.1) Only fourteen phyla have appeared on Urantia, the fishes being the last, and no new classes have developed since birds and mammals.

65:2.12 (733.2) It was from an agile little reptilian dinosaur of carnivorous habits but having a comparatively large brain that the placental mammals *suddenly* sprang. These mammals developed rapidly and in many different ways, not only giving rise to the common modern varieties but also evolving into marine types, such as whales and seals, and into air navigators like the bat family.

65:2.13 (733.3) Man thus evolved from the higher mammals derived principally from the *western implantation* of life in the ancient east-west sheltered seas. The *eastern* and *central* groups of living organisms were early progressing favorably toward the attainment of prehuman levels of animal existence. But as the ages passed, the eastern focus of life emplacement failed to attain a satisfactory level of intelligent prehuman status, having suffered such repeated and irretrievable losses of its highest types of germ plasm that it was forever shorn of the power to rehabilitate human potentialities.

65:2.14 (733.4) Since the quality of the mind capacity for development in this eastern group was so definitely inferior to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the Life Carriers, with the consent of their superiors, so manipulated the environment as further to circumscribe these inferior prehuman strains of evolving life. To all outward appearances the elimination of these inferior groups of creatures was accidental, but in reality it was altogether

지성이 나타나는 후기 진화 과정 중에, 인간 종족의 선조인 여우원숭이는 다른 지역들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앞서 있었고, 그 결과로 그것들은 서부 생명체 이식지에서 **베링** 연결육지를 지나 남서부 **아시아**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계속 진화했고, 중부 생명체 집단 가운데 어떤 종족들과 섞임으로써 유익을 얻었다. 사람은, 서부 및 중부의 어떤 생명체 종족들로부터, 그러나 중앙에서 근동 이르는 지역에서 그렇게 진화했다.

유란시아에 심어진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빙하시대까지 진화했으며, 빙하시대에 인류가 처음 나타났고, 행성에서 다사{多事}한 생애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빙하기 동안에 원시인이 이렇게 지구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기획으로 생긴 일이었다. 빙하기의 곤핍함과 혹독한 기후는, 엄청난 생존 재능과 함께 강인한 유형의 인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모든 면에서 적합했다.

3. 진화의 촉진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외견상으로는 괴상하고 기묘한 많은 사건을, 오늘날의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겉보기에 이상한 생물들이 진화하는 동안 내내 의도적인 계획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생명 원형들이 일단 작동되기 시작한 후에는 그 발달에 우리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

생명 운반자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천연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생명체 실험의 발달 과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우연한 환경이라도 전부 활용할 수 있었지만, 식물이나 동물의 진화에 무의식적으로 개입한다든지, 또는 그 진화와 과정을 임의로 조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원시 개구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진화했다는 것과, 향상하는 이 혈통이, 한 마리의 개구리 속에 잠재되어 간직된 채, 어떤 경우에 가까스로 멸종을 피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이런 전환기에 우연히 인류의 진화가 중단될 수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리고 먼 훗날에 나타나게 될, 돌연변이 생명체 혈통을 예의 주시하면서 육성하고 있었는데, 선행인류로 진보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원형으로 이것들을 유도할 수 있었다. 특유의 이 개구리 조상은 우리가 세 번째로 택한 것이었고, 그 전에 택했던 두 생명체 혈통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했음에도 소멸되고 말았다.

안돈과 **원타**가 자손을 낳기 전에 죽었다면 인

purposeful.

65:2.15 (733.5) Later in the evolutionary unfolding of intelligence, the lemur ancestors of the human species were far more advanced in North America than in other regions; and they were therefore led to migrate from the arena of western life implantation over the Bering land bridge and down the coast to southwestern Asia, where they continued to evolve and to benefit by the addition of certain strains of the central life group. Man thus evolved out of certain western and central life strains but in the central to near-eastern regions.

65:2.16 (733.6) In this way the life that was planted on Urantia evolved until the ice age, when man himself first appeared and began his eventful planetary career. And this appearance of primitive man on earth during the ice age was not just an accident; it was by design. The rigors and climatic severity of the glacial era were in every way adapted to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production of a hardy type of human being with tremendous survival endowment.

3. THE FOSTERING OF EVOLUTION

65:3.1 (733.7) It will hardly be possible to explain to the present-day human mind many of the queer and apparently grotesque occurrences of early evolutionary progress. A purposeful plan was functioning throughout all of these seemingly strange evolutions of living things, but we are not allowed arbitrarily to interfer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ife patterns after they have once been set in operation.

65:3.2 (733.8) Life Carriers may employ every possible natural resource and may utilize any and all fortuitous circumstances which will enhance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the life experiment, but we are not permitted mechanically to intervene in, or arbitrarily to manipulate the conduct and course of, either plant or animal evolution.

65:3.3 (733.9) You have been informed that Urantia mortals evolved by way of primitive frog development, and that this ascending strain, carried in potential in a single frog, narrowly escaped extinction on a certain occasion. But it should not be inferred that the evolution of mankind would have been terminated by an accident at this juncture. At that very moment we were observing and fostering no less than one thousand different and remotely situated mutating strains of life which could have been directed into various different patterns of prehuman development. This particular ancestral frog represented our third selection, the two prior life strains having perished in spite of all our efforts toward their conservation.

65:3.4 (734.1) Even the loss of Andon and Fonta

류의 진화가 늦어질 수 있었겠지만, 아주 중단될 수는 없었다. **안돈**과 **원타**가 출현한 후에, 그리고 동물 생명체로부터 돌연변이로 인간이 나타나는 잠재력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인간 유형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7천 가지 이상의 유망한 혈통이 진화돼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류 혈통 가운데 다수는,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간 인간 종족에게 나중에 동화됐다.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 아들**과 **딸**이 지구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진화하는 동물 종족들의 인간 잠재력은 모두 소진됐다. 동물 생명체의 이런 생물학적 상태는, 보조 영이 동원되는 세 번째 국면의 현상으로 인해 **생명 운반자**들에게 드러났는데, 이 현상은, 모든 동물 생명체가 선행인류 개체들의 돌연변이 잠재력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란시아에서 인류는, 자체의 인간 혈통으로 필사자의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즉 앞으로 영원히, 선행인류의 근원으로부터 어떤 인종도 진화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필사자 인종 속에 여전히 내재하는 진화 잠재력을 총명하게 육성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인류 발전을 달성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체 혈통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생명 운반자**인 우리가 하던 일을,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진화에 참여하던 상태에서부터 물러난 후에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진화 운명은 자신의 손 안에 있으며, 통제되지 않는 자연 도태와 우연한 생존이 닥치는 대로 작용하는 것을, 과학적 지성이 조만간 대신해야 한다.

그리고 진화의 촉진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으로 있을 먼 훗날에, 너희가 어느 날 **생명 운반자** 단체에 배속되면, 생명체를 관리하고 이식{移植}시키는 계획과 기법에서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조성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느긋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우주 영역에 대해서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경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너희 정신 속에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너희는 동역자들과 동료 경영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4. 유란시아 모형

유란시아가 생명을_실험하는 세계로서 우리에게 배정됐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네바돈**의 생명체 설계도를 **사타니아**에 적용시키면서 가능한 한 개선하려고, 우리는 60번째 변경을 시도했으며, 우리가 표준 생명체 원형

before they had offspring, though delaying human evolution, would not have prevented it. Subsequent to the appearance of Andon and Fonta and before the mutating human potentials of animal life were exhausted, there evolved no less than seven thousand favorable strains which could have achieved some sort of human type of development. And many of these better stocks were subsequently assimilated by the various branches of the expanding human species.

65:3.5 (734.2) Long befo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e biologic uplifters, arrive on a planet, the human potentials of the evolving animal species have been exhausted. This biologic status of animal life is disclosed to the Life Carriers by the phenomenon of the third phase of adjutant spirit mobilization, which automatically occurs concomitantly with the exhaustion of the capacity of all animal life to give origin to the mutant potentials of prehuman individuals.

65:3.6 (734.3) Mankind on Urantia must solve its problems of mortal development with the human stocks it has — no more races will evolve from prehuman sources throughout all future time. But this fact does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vastly higher levels of human development through the intelligent fostering of the evolutionary potentials still resident in the mortal races. That which we, the Life Carriers, do toward fostering and conserving the life strains before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man must do for himself after such an event and subsequent to our retirement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evolution. In a general way, man's evolutionary destiny is in his own hands, and scientific intelligence must sooner or later supersede the random functioning of uncontrolled natural selection and chance survival.

65:3.7 (734.4) And in discussing the fostering of evolution, it would not be amiss to point out that, in the long future ahead, when you may sometime be attached to a corps of Life Carriers, you will have abundant and ample opportunity to offer suggestions and make any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plans and technique of life management and transplantation. Be patient! If you have good ideas, if your minds are fertile with better methods of administration for any part of the universal domains, you are certainly going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m to your associates and fellow administrators in the ages to come.

4. THE URANTIA ADVENTURE

65:4.1 (734.5) Do not overlook the fact that Urantia was assigned to us as a life-experiment world. On this planet we made our sixtieth attempt to modify and, if possible, improve the Satania adaptation of the Nebadon life designs, and it is of record that we achieved numerous beneficial modifications of

들의 유익한 변경을 많이 성취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확실히 말해서, 우리는 **유란시아**에서, 앞으로 **네바돈** 전체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28가지 이상으로 생명체를 변경하는 특색을 만들어냈고 만족스럽게 입증했다.

그러나 전혀 시도된 적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시도됐다는 의미에서, 생명체 조성이 시험되는 세계는 결코 없다. 생명체의 진화는 항상 진취적이고 다양하며 변화무쌍하지만, 결코 우연히 또는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이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실험적인 경우도 없다.

인간의 생명 현상은, 필사자 실존이 지성적으로 계획됐다는 증거를, 즉 유기체의 진화가 시공 우주에서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살아있는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세포는 인접해 있는 정상 세포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상 세포들은 상처 치료 과정을 촉진시키는 어떤 물질을 즉시 분비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이 정상적이고 상처받지 않은 세포들이 빠른 속도로 증식 된다--곧 이 세포들은, 사고로 파괴된 어떤 동류 세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실제로 시작한다.

상처를 치료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관련된 이런 화학 작용과 반응은, 10만 가지 이상의 가능한 화학 작용과 생물학적 영향의 국면 및 특색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처방법{處方法}을 **생명 운반자**들이 선택했음을 가리킨다. **유란시아** 생명체 실험을 위해서 이 처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실험실에서 50만 번 이상의 특정한 실험을 했다.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이런 치료하는 화학제 품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고, 어떤 심각한 질병들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조성된 후에, **생명 운반자**들은 이 치료 기법을 개선시켰고, 또 다른 **사타니아** 세계들에도 소개했는데, 그 치료 기법은 고통을 더 감소시키고, 관련된 정상 세포들의 증식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유란시아의 생명체 실험에는 많은 독특한 특색이 있었지만, 두 가지 특기할만한 사건은, 여섯 유색 인종이 진화되기 전에 **안돈** 종족이 출현했던 것과, 그 후에 단일 가족 안에서 **상익** 돌연변이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에서 여섯 유색 인종이 동일한 가족으로부터 나타난 최초의 세계였다. 대개 그들은 선행인류의 동물 혈통 속에서 독립된 변이를 통해 여러 종족으로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 종류씩, 그리고 홍색인부터 시작해서 남색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상에 나타난다.

the standard life patterns. To be specific, on Urantia we worked out and have satisfactorily demonstrated not less than twenty-eight features of life modification which will be of service to all Nebadon throughout all future time.

65:4.2 (735.1) But the establishment of life on no world is ever experimental in the sense that something untried and unknown is attempted. The evolution of life is a technique ever progressive, differential, and variable, but never haphazard, uncontrolled, nor wholly experimental, in the accidental sense.

65:4.3 (735.2) Many features of human life afford abundant evidence that the phenomenon of mortal existence was intelligently planned, that organic evolution is not a mere cosmic accident. When a living cell is injured, it possesses the ability to elaborate certain chemical substances which are empowered so to stimulate and activate the neighboring normal cells that they immediately begin the secretion of certain substances which facilitate healing processes in the wound; and at the same time these normal and uninjured cells begin to proliferate — they actually start to work creating new cells to replace any fellow cells which may have been destroyed by the accident.

65:4.4 (735.3) This chemical action and reaction concerned in wound healing and cell reproduction represents the choice of the Life Carriers of a formula embracing over one hundred thousand phases and features of possible chemical reactions and biologic repercussions. More than half a million specific experiments were made by the Life Carriers in their laboratories before they finally settled upon this formula for the Urantia life experiment.

65:4.5 (735.4) When Urantia scientists know more of these healing chemicals, they will become more efficient in the treatment of injuries, and indirectly they will know more about controlling certain serious diseases.

65:4.6 (735.5) Since life was established on Urantia, the Life Carriers have improved this healing technique as it has been introduced on another Satania world, in that it affords more pain relief and exercises better control over the proliferation capacity of the associated normal cells.

65:4.7 (735.6) There were many unique features of the Urantia life experiment, but the two outstanding episodes were the appearance of the Andonic race prior to the evolution of the six colored peoples and the later simultaneous appearance of the Sangik mutants in a single family. Urantia is the first world in Satania where the six colored races sprang from the same human family. They ordinarily arise in diversified strains from independent mutations within the prehuman animal stock and usually appear on earth one at a

또 다른 특기할만한 과정의 변동은, **행성 왕자가** 늦게 도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왕자는 의지가 조성될 즈음 행성에 나타나며; 그런 계획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캘리가스차**는 거의 50만 년 이후에 여섯 **상익** 인종이 나타남과 동시에 도착하는 대신, **안돈**과 **원타**가 살아있을 때 **유란시아**에 왔어야 했다.

통상적인 인간거주 세계에서는, **안돈**과 **원타**가 출현했을 때, 또는 그보다 조금 나중에,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행성 왕자**가 수여되곤 한다. 그러나 생명체_변경 행성으로 지정된 **유란시아**의 경우에는, **생명 운반자**들에 대한 자문가로서, 그리고 **행성 왕자**가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그 행성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열두 명의 **멜기세덱** 관찰자가 파견되도록 사전에 약속돼 있었다. 이 **멜기세덱**들은, **안돈**과 **원타**의 필사 정신에 **사고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결정을 **안돈**과 **원타**가 내렸을 때 왔다.

유란시아에서 **사타니아** 생명 원형을 증진시키려는 **생명 운반자**들의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형태의 수많은 과도기 생명체를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소득은, 표준 생명체 설계도를 **유란시아**에서 변경한 것을 정당화시키기에는 충분할 정도다.

유란시아의 진화 생명체에 의지가 일찍부터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고, 우리는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의지는 유색 인종들이 출현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야 나타나고, 보통 우수한 유형인 홍색인 사이에서 먼저 나타난다. 너희의 세계는, **사타니아**에서,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 유형의 의지가 존재한, 유일한 행성이다.

그러나 마침내 인간 종족의 포유 동물 선조를 낳은 유전 인자들의 조합과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동안, 우리는 수십만 가지의 서로 다른, 비교적 쓸모없는 유전 인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용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의 이상한 부산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가운데 다수는, 너희가 행성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마주치게 될 것이 확실한데, 이것들 가운데 더러는, 제한된 인간 견해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

5. 생명체_진화의 변천

유란시아에서 지성 생명체를 변경시키려 했던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time and successively over long periods of time, beginning with the red man and passing on down through the colors to indigo.

65:4.8 (735.7) Another outstanding variation of procedure was the lat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s a rule, the prince appears on a planet about the time of will development; and if such a plan had been followed, Caligastia might have come to Urantia even during the lifetimes of Andon and Fonta instead of almos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later, simultaneously with the appearance of the six Sangik races.

65:4.9 (735.8) On an ordinary inhabited world a Planetary Prince would have been granted on the request of the Life Carriers at, or sometime after, the appearance of Andon and Fonta. But Urantia having been designated a life-modification planet, it was by preagreement that the Melchizedek observers, twelve in number, were sent as advisers to the Life Carriers and as overseers of the planet until the subsequent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hese Melchizedeks came at the time Andon and Fonta made the decisions which enabled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ir mortal minds.

65:4.10 (736.1) On Urantia the endeavors of the Life Carriers to improve the Satania life patterns necessarily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many apparently useless forms of transition life. But the gains already accrued are sufficient to justify the Urantia modifications of the standard life designs.

65:4.11 (736.2) It was our intention to produce an early manifestation of will in the evolutionary life of Urantia, and we succeeded. Ordinarily, will does not emerge until the colored races have long been in existence, usually first appearing among the superior types of the red man. Your world is the only planet in Satania where the human type of will has appeared in a precolored race.

65:4.12 (736.3) But in our effort to provide for that combination and association of inheritance factors which finally gave rise to the mammalian ancestors of the human race, we we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permitting hundreds and thousands of other and comparatively useless combinations and associations of inheritance factors to take place. Many of these seemingly strange by-products of our efforts are certain to meet your gaze as you dig back into the planetary past, and I can well understand how puzzling some of these things must be to the limited human viewpoint.

5. LIFE-EVOLUTION VICISSITUDES

65:5.1 (736.4) It was a source of regret to the Life Carriers that our special efforts to modify

비극적인 과오 즉: **캘리게스차**의 배반과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심하게 방해 받은 것 때문에, **생명 운반자**들이 유감스러워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모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특정한 원시 식물 생명체가 퇴화해서 그토록 광범하고 예기치 않은 정도로 엽록소 수준의 기생{寄生} 박테리아로 변한 것 때문이었다. 식물 생명체 진화에서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이 결말이, 고등 포유동물에게 많은 괴로운 질병을 유발시켰고, 특히 취약한 인간 종족들에게 심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섞임으로써, 그 결과로 나타난 혼혈 인종의 저항 능력이 보장돼서, 식물 유형 유기체가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 실제적인 면역성을 갖도록 만들 것임을 알았으므로, 복잡한 어려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아담**이 직무에 태만한 불행 때문에 실망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유란시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세계를 포함해서, 온갖 우주는, 단순히 우리의 동의를 받는 정도로, 또는 겨우 우리의 편리에 맞추도록, 더욱이 우리의 일시적 만족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관리되지는 않는다. 우주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현명하고 전능한 존재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통치, 능력 있는 권세, 그리고 진보하는 행진에 진심으로 협조하는 것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어울리고, 필사 지성인들에게 마땅하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된 바와 같이, 물론 시련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려 사항에 상관없이, 나중에 온 이 천상의 행성 감독관들은, 인류 종족이 진화에서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원래 계획과 생명체 원형질이 결국 입증되리라는 것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표명한다.

6. 생명체의 진화 기법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세밀한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어느 하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즉시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변하게 돼있다. 필사적 사람이 원형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똑같은 종류의 모순에 봉착한다. 화학자{化學者}가 죽은 원형질의 화학적 성질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물리적 조직이나 역동적{力動的} 실행은 식별할 수 없다. 과학자가 생명의 비밀에 계속 가까이 접근해갈 수는 있지만, 생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형질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원형질은 살아있는 원형질과 똑같은 무게를 갖지만, 그 둘은 똑같지 않다.

intelligent life on Urantia should have been so handicapped by tragic perversions beyond our control: the Caligastia betrayal and the Adamic default.

65:5.2 (736.5) But throughout all of this biologic adventure our greatest disappointment grew out of the reversion of certain primitive plant life to the prechlorophyll levels of parasitic bacteria on such an extensive and unexpected scale. This eventuality in plant-life evolution caused many distressful diseases in the higher mammals, particularly in the more vulnerable human species. When we were confronted with this perplexing situation, we somewhat discounted the difficulties involved because we knew that the subsequent admixture of the Adamic life plasm would so reinforce the resisting powers of the resulting blended race as to make it practically immune to all diseases produced by the vegetable type of organism. But our hopes were doomed to disappointment owing to the misfortune of the Adamic default.

65:5.3 (736.6) The universe of universes, including this small world called Urantia, is not being managed merely to meet our approval nor just to suit our convenience, much less to gratify our whims and satisfy our curiosity. The wise and all-powerful beings who are responsible for universe management undoubtedly know exactly what they are about; and so it becomes Life Carriers and behooves mortal minds to enlist in patient waiting and hearty co-operation with the rule of wisdom, the reign of power, and the march of progress.

65:5.4 (736.7) There are, of course, certain compensations for tribulation, such as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But irrespective of all such considerations, the later celestial supervisors of this planet express complete confidence in the ultimate evolutionary triumph of the human race and in the eventual vindication of our original plans and life patterns.

6. EVOLUTIONARY TECHNIQUES OF LIFE

65:6.1 (737.1) It is impossible accurately to determine, simultaneously, the exact location and the velocity of a moving object; any attempt at measurement of either inevitably involves change in the other. The same sort of a paradox confronts mortal man when he undertakes the chemical analysis of protoplasm. The chemist can elucidate the chemistry of *dead* protoplasm, but he cannot discern either the physical organization or the dynamic performance of *living* protoplasm. Ever will the scientist come nearer and nearer the secrets of life, but never will he find them and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he must kill protoplasm in order to analyze it. Dead protoplasm weighs the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에는, 적응해 나가는 본래의 재능이 들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세포 속에, 즉 모든 살아있는 --물질적 또는 영적-- 원형질 속에는, 환경 조정, 유기체적 적응, 그리고 증가된 생명체 실현에 대해 계속적으로 더 속달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의 이런 끝없는 노력이, 완전성을 향한 타고난 욕구가 그들 안에 실존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식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엽록소를 생성하는 역량의 발달이었으며, 둘째로 큰 진전은 홀씨가 복잡한 씨앗으로 진화한 것이었다. 홀씨는 번식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이지만, 씨앗에 들어 있는 다양성과 융통성이라는 잠재력은 결여돼 있다.

고등 유형의 동물 진화에서 가장 유용하고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순환하는 혈액 세포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를 운반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는 이중 역할을 하는 역량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리고 적혈구 세포의 이런 성능은, 진화하는 유기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변화하고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을 포함해서 고등 동물은, 적혈구 세포에 들어 있는 철분의 작용으로 조직체에 산소를 공급하며, 이 적혈구는 살아있는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그러나 다른 금속 성분도 똑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오징어 속에는 이런 기능을 위해서 동(銅) 성분이 들어 있고, 멧게는 바다뱀을 이용한다.

계속된 그런 생물학적 적응은, 유란시아의 고등 포유동물의 이가 진화된 모습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람의 먼 조상은 서른여섯 개의 이를 가졌고, 원시인 및 그의 가까운 동족들의 경우에는 서른두 개를 갖는 쪽으로 개조(改造)되는 재적응이 시작됐다. 이제 인간 종족은 스물여덟 개를 갖는 방향으로 서서히 줄었다. 진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개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신비한 것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적응은, 대개 순전히 화학적이고 전적으로 물리적이다. 모든 인간의 혈액 속에는, 어떤 순간에든지, 열두 개의 내분비선(內分泌線)에서 분비된 호르몬들 사이에 1,500만 개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열등한 형태의 식물 생명체는 물질적, 화학적, 전기적 환경에 전적으로 민감하다. 그러나 생명체의 등급이 상승될 때, 일곱 보조 영의 정신 활동이 하나씩 하나씩 작동하게 되며, 정신은 점점 더 적응을 잘하고 창조적이며 협조적이고 지배적이 된다. 동물이 공기, 물, 및 땅에 적응하는 역량은 초자연적인 재능이 아니라, 초물리적 적응이다.

same as living protoplasm, but it is not the same.

65:6.2 (737.2) There is original endowment of adaptation in living things and beings. In every living plant or animal cell, in every living organism — material or spiritual — there is an insatiable craving for the attainment of ever-increasing perfection of environmental adjustment, organismal adaptation, and augmented life realization. These interminable efforts of all living things evidence the existence within them of an innate striving for perfection.

65:6.3 (737.3) The most important step in plant evolution was the development of chlorophyll-making ability, and the second greatest advance was the evolution of the spore into the complex seed. The spore is most efficient as a reproductive agent, but it lacks the potentials of variety and versatility inherent in the seed.

65:6.4 (737.4) One of the most serviceable and complex episodes in the evolution of the higher types of animals consi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y of the iron in the circulating blood cells to perform in the double role of oxygen carrier and carbon dioxide remover. And this performance of the red blood cells illustrates how evolving organisms are able to adapt their functions to varying or changing environment. The higher animals, including man, oxygenate their tissues by the action of the iron of the red blood cells, which carries oxygen to the living cells and just as efficiently removes the carbon dioxide. But other metals can be made to serve the same purpose. The cuttlefish employs copper for this function, and the sea squirt utilizes vanadium.

65:6.5 (737.5) The continuation of such biologic adjustments is illustrated by the evolution of teeth in the higher Urantia mammals; these attained to thirty-six in man's remote ancestors, and then began an adaptative readjustment toward thirty-two in the dawn man and his near relatives. Now the human species is slowly gravitating toward twenty-eight. The process of evolution is still actively and adaptatively in progress on this planet.

65:6.6 (737.6) But many seemingly mysterious adjustments of living organisms are purely chemical, wholly physical. At any moment of time, in the blood stream of any human being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upward of 15,000,000 chemical reactions between the hormone output of a dozen ductless glands.

65:6.7 (737.7) The lower forms of plant life are wholly responsive to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environment. But as the scale of life ascends, one by one the mind ministries of the seven adjutant spirits become operative, and the mind becomes increasingly adjustive, creative, co-ordinative, and dominative. The ability of animals to adapt themselves to air, water, and land is not a

물리학이나 화학만으로는, 초기 바다의 원시 원형질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진화돼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환경을 배우고 기억하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역량은 정신의 재능이다. 물리 법칙은 혼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불변하고 항상 일정하다. 화학 반응은 교육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항상 일정하고 의존적이다.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은 제외하고, 전기 및 화학 반응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체험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복되는 충동에 반응하는 민감한 습관적 행태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지성을 갖추기 전의 유기체들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지만, 정신 활동에 민감한 유기체들은 환경 자체를 조절하고 조종할 수 있다.

한 인격체의 발전적인 정신이 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천적 수용력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진보와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뇌는 관련된 신경 체계와 함께 정신 활동에 대해 반응하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진화는, 일곱 보조 영과 그들의 초물리적 동역자들이 정신에게 베푸는 사역에 의존한다.

7. 진화하는 정신 수준

일곱 보조 정신_영은, 한 지방우주에서 열등한 지성 실존들에게 다재다능하게 작용하는 정신 사역자다. 이 정신 체제는 지방우주 본부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세계로부터 보살핌을 받지만, 하위_정신 기능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체계 수준에서 지시한다.

진화 세계에서는, 이런 일곱 보조체에 많이, 매우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이 보조체들은 정신 사역자이며; **생명 운반자**들의 영역인 물리적 진화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생명 운반자**들이 전개하는 선천적 체제의 예정된 자연 과정과 이 영 자질이 완전하게 통합된 것은, 정신 현상에서 자연의 지배력 외에, 그리고 자연스런 과정의 외부작업 외에, 필사자가 왜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지 설명하며, 하지만 물질과 관련 있는 정신의 자연스런 반응과 관련된 각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때, 너희는 때때로 어느 정도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란시아**가 원래의 계획과 좀 더 일치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면, 너희는 정신 현상에서 관심 끄는 것을 무척 적게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supernatural endowment, but it is a superphysical adjustment.

65:6.8 (738.1) Physics and chemistry alone cannot explain how a human being evolved out of the primeval protoplasm of the early seas. The ability to learn, memory and differential response to environment, is the endowment of mind. The laws of physics are not responsive to training; they are immutable and unchanging. The reactions of chemistry are not modified by education; they are uniform and dependable. Aside from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electrical and chemical reactions are predictable. But mind can profit from experience, can learn from reactive habits of behavior in response to repetition of stimuli.

65:6.9 (738.2) Preintelligent organisms react to environmental stimuli, but those organisms which are reactive to mind ministry can adjust and manipulate the environment itself.

65:6.10 (738.3) The physical brain with its associated nervous system possesses innate capacity for response to mind ministry just as the developing mind of a personality possesses a certain innate capacity for spirit receptivity and therefore contains the potentials of spiritual progress and attainment. Intellectu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evolution are dependent on the mind ministry of the seven adjutant spirits and their superphysical associates.

7. EVOLUTIONARY MIND LEVELS

65:7.1 (738.4)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the versatile mind ministers to the lower intelligent existences of a local universe. This order of mind is ministered from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or from some world connected therewith, but there is influential direction of lower-mind function from the system capitals.

65:7.2 (738.5) On an evolutionary world much, very much, depends on the work of these seven adjutants. But they are mind ministers; they are not concerned in physical evolution, the domain of the Life Carriers. Nevertheless, the perfect integration of these spirit endowments with the ordained and natural procedure of the unfolding and inherent regime of the Life Carriers is responsible for the mortal inability to discern, in the phenomenon of mind, aught but the hand of nature and the outworking of natural processes, albeit you are occasionally somewhat perplexed in explaining all of everything connected with the natural reactions of mind as it is associated with matter. And if Urantia were operating 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lans, you would observe even less to arrest your attention in the phenomenon of mind.

일곱 보조 영은 실체 같지기보다는 회로 같으며, 평범한 세계들에서는, 지방우주 전체의 다른 보조 작용들과 함께 회로화 돼있다. 어쨌든, 생명을 실험하는 행성들에서, 그들은 비교적 격리돼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생명체 원형들이 독특한 본성을 갖기 때문에, 하위 보조체들은, 더 표준화된 유형의 생명을 부여한 경우보다, 진화하는 유기체와 접촉하는 데 훨씬 심한 어려움을 체험한다.

게다가, 일곱 보조 영은, 동물이 발전하는 여러 향상 단계와 동조되는 것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보다는, 평범한 진화 세계에서 훨씬 탁월하다. 오직 한 가지 예외로, 보조체들은 **네바돈**의 전체 우주에서 온갖 활동을 하면서 겪은 중에, **유란시아**에서 유기체들의 진화하는 정신들과 접촉하는 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체험했다. 이 세계에서는 많은 형태의 어중간한--곧 기계적이고 학습력 없는, 그리고 기계적이 아니고 학습력 있는 유형의 유기체 반응들이 뒤죽박죽으로 배합된--현상이 발달했다.

일곱 보조 영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 순전히 기계적인 종류와는 접촉을 이루지 않는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성을 갖기 전에 보이는 그런 반응은, 순전히 동력 중심, 물리 통제관, 및 그 동역자들의 에너지 분야에 관계된다.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잠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은, 보조 영들의 활동이 시작됨을 표시하며, 그들은 원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 같은 가장 열등한 정신부터, 인간 같은 가장 높은 유형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작용한다. 그들은 달리 어느 정도 불가사의한 행태, 그리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행태, 물질 환경에 대한 정신의 신속한 반응의 근원이고 원형이다. 충실하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은, 동물 정신이 인간 수준의 영 감수성에 도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예비적인 사역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보조체들은, 여섯째 국면, 즉 경배의 기질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오로지 체험하는 정신이 진화하는 동안에만 작용한다. 이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사역이 겹쳐지는 일이 발생한다--높은 수준의 발전이 나중에 달성될 것을 기대해서, 높은 수준에 있는 자가 낮은 수준에 있는 자와 협조하려고 손을 내미는 현상이다. 그리고 여전히, 일곱째인 마지막 보조체인 지혜의 기질의 행동에, 추가적인 영 사역이 뒤따른다. 영 세계가 베푸는 사역 전반에 걸쳐서, 개인은 영의 협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변천을 결코 체험하지 않으며; 이 변화는 항상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다.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곧 전기 화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분야들은

65:7.3 (738.6) The seven adjutant spirits are more circuitlike than entitylike, and on ordinary worlds they are encircuited with other adjutant functionings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On life-experiment planets, however, they are relatively isolated. And on Urantia, owing to the unique nature of the life patterns, the lower adjutants experienced far more difficulty in contacting with the evolutionary organisms than would have been the case in a more standardized type of life endowment.

65:7.4 (738.7) Again, on an average evolutionary world the seven adjutant spirits are far better synchronized with the advancing stages of animal development than they were on Urantia. With but a single exception, the adjutants experienced the greatest difficulty in contacting with the evolving minds of Urantia organisms that they had ever had in all their functioning throughout the universe of Nebadon. On this world there developed many forms of border phenomena — confusional combinations of the mechanical-nonteachable and the nonmechanical-teachable types of organismal response.

65:7.5 (739.1) The seven adjutant spirits do not make contact with the purely mechanical orders of organismal environmental response. Such preintelligent responses of living organisms pertain purely to the energy domains of the power cent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65:7.6 (739.2) The acquisition of the potential of the 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 marks the beginning of the functioning of the adjutant spirits, and they function from the lowliest minds of primitive and invisible existences up to the highest types in the evolutionary scale of human beings. They are the source and pattern for the otherwise more or less mysterious behavior and incompletely understood quick reactions of mind to the material environment. Long must these faithful and always dependable influences carry forward their preliminary ministry before the animal mind attains the human levels of spirit receptivity.

65:7.7 (739.3) The adjutants function exclusively in the evolution of experiencing mind up to the level of the sixth phase, the spirit of worship. At this level there occurs that inevitable overlapping of ministry — the phenomenon of the higher reaching down to co-ordinate with the lower in anticipation of subsequent attainment of advanced levels of development. And still additional spirit ministry accompanies the action of the seventh and last adjutant, the spirit of wisdom. Throughout the ministry of the spirit world the individual never experiences abrupt transitions of spirit co-operation; always are these changes gradual and reciprocal.

65:7.8 (739.4) Always should the domains of the physical (electrochemical) and the mental

항상 구별돼야 하며, 다음에 이 분야들은 모두 영적 활동과 구별된 현상으로 인식돼야 한다.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인력이 작용하는 분야는, 긴밀한 상호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시공우주 실체의 뚜렷이 다른 영역들이다.

8.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돼 있으며; 타고난 연합체다. 어떤 공간 조건이 있는 곳에서, 시간 지연은 피할 수 없다.

진화로 생명체를 발달시키는 변천을 일으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면, 나는, 한 행성의 물리적 변형이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생명체 과정을 펼치도록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 행성의 자연스런 물리적 발전을 기다려야 하며; 지질학적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만일 물리적 조건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100만 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생명체 진화가 완성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낙원의 최상급 통치자들**의 관할권 아래 있고, **낙원**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길이가, 시간을 재는 개인의 척도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를 길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일생의 기간이 일시적 실존으로 제한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진화가 그토록 오래 걸리는 진행사항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낙원**에서는, **무한자**의 정신과 **영원자**의 활동에서 이것들은 모두 **현재**다.

정신의 진화가 물리적 조건의 느린 발전에 의존하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듯이, 영적 진보는 정신의 확장에 의존하고 지능의 발달 지연 때문에 반드시 늦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진화가, 교육, 문화, 또는 지혜에 달려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혼은 정신 문화에 상관없이 진보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정신의 수용력과 욕구가 없을 때에는--곧 생존을 선택하고, 늘 증가하는 완전성을 성취하려는 결정이 없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생존은 지식과 지혜의 소유에 의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보는 매우 분명하게 의존한다.

시공우주의 진화 실험실에서는 정신이 항상 물질을 지배하고, 영은 언제나 정신과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다양한 재능이, 동조(同調)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시간이 지연되지만,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다면, 시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상관없이 생존이 보장된다. 물질적 상태가 정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정신적 사악함은 영적

response to environmental stimuli be differentiated, and in turn must they all be recognized as phenomena apart from spiritual activities. The domains of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gravity are distinct realms of cosmic reality, notwithstanding their intimate interrelations.

8. EVOLUTION IN TIME AND SPACE

65:8.1 (739.5) Time and space are indissolubly linked; there is an innate association. The delays of time are inevitable in the presence of certain space conditions.

65:8.2 (739.6) If spending so much time in effecting the evolutionary changes of life development occasions perplexity, I would say that we cannot time the life processes to unfold any faster than the physical metamorphoses of a planet will permit. We must wait upon the natural, physical development of a planet; we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geologic evolution. If the physical conditions would allow, we could arrange for the completed evolution of life in considerably less than one million years. But we are 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Rulers of Paradise, and time is nonexistent on Paradise.

65:8.3 (739.7) The individual's yardstick for time measurement is the length of his life. All creatures are thus time conditioned, and therefore do they regard evolution as being a long-drawn-out process. To those of us whose life span is not limited by a temporal existence, evolution does not seem to be such a protracted transaction. On Paradise, where time is nonexistent, these things are all *present* in the mind of Infinity and the acts of Eternity.

65:8.4 (739.8) As mind evolution is dependent on, and delayed by, the slow development of physical conditions, so is spiritual progress dependent on mental expansion and unfailingly delayed by intellectual retardation. But this does not mean that spiritual evolution is dependent on education, culture, or wisdom. The soul may evolve regardless of mental culture but not in the absence of mental capacity and desire — the choice of survival and the decision to achieve ever-increasing perfection —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lthough survival may not depend on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nd wisdom, progression most certainly does.

65:8.5 (740.1) In the cosmic evolutionary laboratories mind is always dominant over matter, and spirit is ever correlated with mind. Failure of these diverse endowments to synchronize and co-ordinate may cause time delays, but if the individual really knows God and desires to find him and become like him, then survival is assured regardless of the handicaps of time. Physical status may handicap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이런 방해물 가운데 어떤 것도, 성의를 다한 의지의 선택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물리적 조건이 성숙되면, 갑작스런 정신적 진화가 발생할 것이며; 정신 상태가 알맞게 되면, 갑작스런 영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영적 가치가 적합한 승인을 받게 되면, 시공우주의 의미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인격체는 시간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점점 더 면제되며,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mind, and mental perversity may delay spiritual attainment, but none of these obstacles can defeat the whole-souled choice of will.

65:8.6 (740.2) When physical conditions are ripe, sudden mental evolutions may take place; when mind status is propitious, sudden spiritual transformations may occur; when spiritual values receive proper recognition, then cosmic meanings become discernible, and increasingly the personality is released from the handicaps of time and delivered from the limitations of space.

65:8.7 (740.3) [Sponsor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resident on Urantia.]

제 66편.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 065

유란시아 책

06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66편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섹션

소개

1. 캘리게스차 왕자
2. 왕자의 참모진
3. 달라마시아—왕자의 도성
4. 1백 인의 초기 시절
5. 1백 인 무리의 조직
6. 왕자의 통치
7. 달라마시아의 생활
8. 캘리게스차의 불행

소개

일반적인 세계에 **라노난덱 아들이** 도래했다는 사실은, 의지, 즉 영원한 생존{生存}의 행로{行路}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원시인의 정신 속에 개발됐음을 뜻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출현한 후 거의 50만 년 됐을 때 **행성 왕자**가 도착했다.

약 50만 년 전에, 그리고 여섯 유색 인종, 즉 **상익** 인종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 왕자 캘리게스차**가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왕자**가 도착했을 때, 지구에는 약 5억 명의 원시 인간이 있었으며, 그들은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왕자**의 본부는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는데, 거의 세계 인구 중심부에 있었다.

1. 캘리게스차 왕자

캘리게스차는 **라노난덱 아들이**였고, 2차 계

PAPER 66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Prince Caligastia
2. The Prince's Staff
3. Dalamatia — The City of the Prince
4. Early Days of the One Hundred
5. Organization of the One Hundred
6. The Prince's Reign
7. Life in Dalamatia
8. Misfortunes of Caligastia

INTRODUCTION

66:0.1 (741.1) THE advent of a Lanonandek Son on an average world signifies that will, the ability to choose the path of eternal survival, has developed in the mind of primitive man. But on Urantia the Planetary Prince arrived almost half a million years after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66:0.2 (741.2) Abou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ago and concurrent with the appearance of the six colored or Sangik races,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arrived on Urantia. There were almost one-half billion primitive human beings on earth at the time of the Prince's arrival, and they were well scattered over Europe, Asia, and Africa. The Prince's headquarters, established in Mesopotamia, was at about the center of world population.

1. PRINCE CALIGASTIA

66:1.1 (741.3) Caligastia was a Lanonandek Son,

층 중에서 9,344_번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방 우주의 직무를 경영하는 체험을 했고, 후대{後代}에는 특히 **사타니아** 지역 체계를 관리하는 체험을 했다.

루시퍼가 사타니아를 통치하기 전에는, 캘리개스차가 예루셈의 생명 운반자 자문이 협의회에 배속돼 있었다. **루시퍼**는 자신의 직속 참모 위치까지 **캘리개스차**를 높였고, 그는 명예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의 연속된 임무를 훌륭히 이행했다.

캘리개스차는 매우 일찍부터 **행성 왕자**로 임관되고자 애썼지만, 성좌 협의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 상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성좌 아버지**들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캘리개스차**는, 10진{十進} 세계, 즉 생명체_변경 세계에 행성 통치자로서 파견되기를 특별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유란시아**에 배정될 때까지, 그의 청원은 여러 차례 기각됐다.

캘리개스차는 **예루셈**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이때 그는 어떤 사소한 문제에서 기존 질서를 거부하려는 경향과, 특정한 성격적 불안감의 이중성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기원되고 머물러 있는 우주의 복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바람직한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충명한 **캘리개스차**가 체계 수도{首都}를 떠날 때, 나는 **예루셈**에 있었다. 어떤 행성 왕자도, 50만 년 전 그 중대한 날에, **캘리개스차**가 지냈던 것보다 더 풍부한 예비 체험이나 더 훌륭한 성공 가능성을 지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생애에 임한 적이 없었다. 한 가지는 분명한데:그 사건을 지방우주에 알리기 위해 서술{敍述}하는 내 임무를 수행할 때, 나는 훌륭한 이 **라노난덱**이, 행성을 관리하는 신성시되는 책임을 그토록 신속히 저버리고, 우주 아들신분의 고귀한 계층에 합당한 이름을 그토록 금찍하게 더럽히리라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나는 정말로, 세상 직무를 주재하는 자리에, 그런 숙련되고 충명하고 독창적인 정신을 갖춘 존재를 **유란시아**가 모심으로써, 전체 **사타니아** 행성 가운데서 가장 운 좋은 다섯 내지 여섯 행성에 포함되리라고 여겼다. 그때 나는, **캘리개스차**가 은밀하게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었음을 납득하지 못했으며;인격의 오만함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2. 왕자의 참모진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파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보좌관 단체와 경영 협조자들이 그를 따라왔다.

이 집단의 수뇌부에는 **행성 왕자**의 동역_보

number 9,344 of the secondary order. He was experienc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 in general and, during later ages, with the management of the local system of Satania in particular.

66:1.2 (741.4) Prior to the reign of Lucifer in Satania, Caligastia had been attached to the council of the Life Carrier advisers on Jerusem. Lucifer elevated Caligastia to a position on his personal staff, and he acceptably filled five successive assignments of honor and trust.

66:1.3 (741.5) Caligastia very early sought a commission as Planetary Prince, but repeatedly, when his request came up for approval in the constellation councils, it would fail to receive the assent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Caligastia seemed especially desirous of being sent as planetary ruler to a decimal or life-modification world. His petition had several times been disapproved before he was finally assigned to Urantia.

66:1.4 (741.6) Caligastia went forth from Jerusem to his trust of world dominion with an enviable record of loyalty and devotion to the welfare of the universe of his origin and sojourn, notwithstanding a certain characteristic restlessness coupled with a tendency to disagree with the established order in certain minor matters.

66:1.5 (741.7) I was present on Jerusem when the brilliant Caligastia departed from the system capital. No prince of the planets ever embarked upon a career of world rulership with a richer preparatory experience or with better prospects than did Caligastia on that eventful day one-half million years ago. One thing is certain: As I executed my assignment of putting the narrative of that event on the broadcasts of the local universe, I never for one moment entertained even in the slightest degree any idea that this noble Lanonandek would so shortly betray his sacred trust of planetary custody and so horribly stain the fair name of his exalted order of universe sonship. I really regarded Urantia as being among the five or six most fortunate planets in all Satania in that it was to have such an experienced, brilliant, and original mind at the helm of world affairs. I did not then comprehend that Caligastia was insidiously falling in love with himself; I did not then so fully understand the subtleties of personality pride.

2. THE PRINCE'S STAFF

66:2.1 (742.1)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as not sent out on his mission alone but was accompanied by the usual corps of assistants and administrative helpers.

66:2.2 (742.2) At the head of this group was

좌관인 **달리개스차**가 있었다. **달리개스차** 역시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그 계층 중에서 319,407_번이었다. **캘리개스차**의 동역자로서 배정됐을 때, 그의 계급은 보좌관이었다.

행성 참모진은, 수많은 협조하는 천사와 한 무리의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간 종족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배정됐다. 그러나 너희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전환 구성원들일 것이다--때로는 **캘리개스차 100인**으로 불린다.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다시 물질화{物質化}된 100명의 이 구성원은, **유란시아** 모험에 참여하기로 자원한 785,000명의 상승한 **예루셈** 시민 중에서 **캘리개스차**가 선택했다. 선택된 100명 각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고, **유란시아**에서 온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 **예루셈**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스랍 운송{運送}을 통해서 체계 수도로부터 **유란시아**로 직접 옮겨졌고,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이중{二重} 본질을 갖는 행성 특별 봉사, 즉 살과 피로 구성된 순전한 육체를 가졌지만, 또한 체계의 생명 회로에 동조된 인격 형태가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스라빔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100인의 **예루셈** 시민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감독하던 두 명의 **생명 운반자**는, 그들의 계획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전환 구성원을 위해서 투사될 물질적 몸체들 속으로, **안돈**과 **원타** 혈통에서 선택한 생존자 100명의 생명 원형질을 이식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예루셈**과 **에덴시아**에 요청했다. 그 요청은 **예루셈**에서 승인됐고 **에덴시아**에서 허락됐다.

따라서, **생명 운반자**들은 **안돈**과 **원타**의 후손 가운데서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들은 그 독특한 인종에 속하는, 가장 뛰어난 혈통의 생존자를 대표한다. 한 두 사람의 예외는 있었지만, 인종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할 이 **안돈** **족속**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일원화된 **사고 조율사**의 지시와 스랍의 안내에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왕자**의 행성 본부 입구로 집합했다. 여기서 100명의 인간 상대자{相對者}는, **아바론**에서 온 매우 능숙한 자원봉사자 위원회에게 맡겨졌고, 그들은 이 **안돈** 후예들의 생명 원형질의 일부 물질을 추출{抽出}하는 것을 지도했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때,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100명의 **예루셈** 시민 구성원에게 알맞도록 제조된 물질 몸체로 전환됐다. 그동안, 체계 수도로부터 새로 도착한 이 시민들은 스랍 운송의 보호 속에 잠들어 있었다.

Daligastia, the associate-assistant of the Planetary Prince. Daligastia was also a secondary Lanonandek Son, being number 319,407 of that order. He ranked as an assistant at the time of his assignment as Caligastia's associate.

66:2.3 (742.3) The planetary staff included a large number of angelic co-operators and a host of other celestial beings assigned to advance the interest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human races. But from your standpoint the most interesting group of all were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ligastia one hundred*.

66:2.4 (742.4) These one hundred rematerialized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chosen by Caligastia from over 785,000 ascendant citizens of Jerusem who volunteered for embarkation on the Urantia adventure. Each one of the chosen one hundred was from a different planet, and none of them were from Urantia.

66:2.5 (742.5) These Jerusemite volunteers were brought by seraphic transport direct from the system capital to Urantia, and upon arrival they were held enseraphimed until they could be provided with personality forms of the dual nature of special planetary service, literal bodies consisting of flesh and blood but also attuned to the life circuits of the system.

66:2.6 (742.6) Sometime before the arrival of these one hundred Jerusem citizens, the two supervising Life Carriers resident on Urantia, having previously perfected their plans, petitioned Jerusem and Edentia for permission to transplant the life plasm of one hundred selected survivors of the Andon and Fonta stock into the material bodies to be projected for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 request was granted on Jerusem and approved on Edentia.

66:2.7 (742.7) Accordingly, fifty males and fifty females of the Andon and Fonta posterity, representing the survival of the best strains of that unique race, were chosen by the Life Carriers. With one or two exceptions these Andonite contributors to the advancement of the race were strangers to one another. They were assembled from widely separated places by co-ordinated Thought Adjuster direction and seraphic guidance at the threshold of the planetary headquarters of the Prince. Here the one hundred human subjects wer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highly skilled volunteer commission from Avalon, who directed the material extraction of a portion of the life plasm of these Andon descendants. This living material was then transferred to the material bodies constructed for the use of the one hundred Jerusemit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Meantime, these newly arrived citizens of the system capital were held in the sleep of seraphic transport.

이 진행사항은, **칼리개스차** 100인을 위해서 특별한 몸체들이 실제로 창조됨과 동시에, 수많은 전설(傳說)을 만들어냈는데, 이중에 다수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대의 전통과 나중에 혼돈을 일으키게 됐다.

100명의 **예루셈** 자원봉사자를 데려온 스랍 운송체들이 도착한 때부터, 그 영역의 삼중적 존재인 그들이 의식을 찾기까지, 다시 인격화되는 전체 처리사항이 이뤄지는 데는 정확하게 10일이 소요됐다.

3. 달라마시아--왕자의 도성

행성 왕자의 본부는 당시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었는데, 후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일치되는 지역이었다.

그 시절에 **메소포타미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은, 그 뒤에 때때로 널리 퍼진 조건과는 매우 다르게, **왕자**의 참모진과 그 보좌관들이 맡은 일을 하기에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 원시 **유란시아인**의 문화와 문명이 어떤 초기 수준까지 발전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한 자연 환경의 일부로서, 그런 유리한 기후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시대에 큰 과제 하나는, 사람을 사냥꾼에서 목자{牧者}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평화를 사랑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농부로 진화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본부는, 새로 조성되고 발전이 이뤄지는 구체에 있는 전형적 주둔지였다. **왕자**가 정착한 장소의 중심부는 매우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운 도성{都城}이었고, 40피트에 달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적 문화 중심지는 **달리개스차**에게 경의를 표해, **달라마시아**라고 이름지어졌다.

도성은 10개 구역으로 나뉘었고, 육체전환 참모진의 10개 협의회 본부 건물이 각 구역 중심부에 위치했다. 도성의 정 중앙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다. **왕자**와 그 동역자들의 경영 본부는, 성전에 바로 이어서 배열된 12개의 회관에 배치됐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건물은 모두 단층이었고, 2층으로 돼있는 협의회 본부,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3층 높이로 돼있는 만유{萬有}의 **아버지**의 중앙 성전만 예외였다.

도성은 건축 재료에서--곧 벽돌에서--그런 초기 시대로서는 최고의 풍습을 보여줬다. 돌과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집 건물과 마을 건축술은, **달라마시아**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크게 발전했다.

66:2.8 (742.8) These transactions, together with the literal creation of special bodies for the Caligastia one hundred, gave origin to numerous legends, many of which subsequently became confused with the later traditions concerning the planetary installation of Adam and Eve.

66:2.9 (743.1) The entire transaction of repersonalization, from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eraphic transports bearing the one hundred Jerusem volunteers until they became conscious, threefold beings of the realm, consumed exactly ten days.

3. DALAMATIA — THE CITY OF THE PRINCE

66:3.1 (743.2)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was situated in the Persian Gulf region of those days, in the district corresponding to later Mesopotamia.

66:3.2 (743.3) The climate and landscape in the Mesopotamia of those times were in every way favorable to the undertakings of the Prince's staff and their assistants, very different from conditions which have sometimes since prevailed. It was necessary to have such a favoring climate as a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designed to induce primitive Urantians to make certain initial advances in culture and civilization. The one great task of those ages was to transform man from a hunter to a herder, with the hope that later on he would evolve into a peace-loving, home-abiding farmer.

66:3.3 (743.4)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on Urantia was typical of such stations on a young and developing sphere. The nucleus of the Prince's settlement was a very simple but beautiful city, enclosed within a wall forty feet high. This world center of culture was named Dalamatia in honor of Daligastia.

66:3.4 (743.5) The city was laid out in ten subdivisions with the headquarters mansions of the ten councils of the corporeal staff situated at the centers of these subdivisions. Centermost in the city was the temple of the unseen Father.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Prince and his associates was arranged in twelve chambers immediately grouped about the temple itself.

66:3.5 (743.6) The buildings of Dalamatia were all one story except the council headquarters, which were two stories, and the central temple of the Father of all, which was small but three stories in height.

66:3.6 (743.7) The city represented the best practices of those early days in building material — brick. Very little stone or wood was used. Home building and village architecture among the surrounding peoples were greatly improved by the Dalamatian example.

왕자의 본부 근처에는 온갖 피부색과 계층의 인간이 거주했다. 그리고 **왕자**의 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모집됐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이 초기 학교들은 비록 미숙했지만, 원시적인 그 시대의 남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은, 주변에 있는 부족 중에서 우수한 개인들을 끊임없이 모집했으며,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영감(靈感)을 불어넣은 후에는, 그들 각자 민족의 선생과 지도자로서 돌려보냈다.

4. 1백 인의 초기 시절

왕자의 참모진이 출현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소식이 널리 퍼지기까지 거의 1,000년이 소요됐고, **메소포타미아** 본부 근처에 있는 부족들은 새로 **유란시아**에 머물게 된 100인의 가르침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중에 이뤄진 신화(神話) 대부분은,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이 구성원들이 **유란시아**에서 초인간으로 다시 인격화된, 이 초기 시대에 관한 왜곡된 전설로부터 생겨났다.

그런 행성 바깥에서 온 선생들이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데 심각한 방해물은, 그들을 신(神)으로 간주하려는 필사자들의 경향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기법을 제외하고, **캘리게스차** 100인은 --곧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는-- 초자연적 방법이나 초인적 조작(操作)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육체전환 참모진은 그럼에도 초인간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색다른 삼중적 존재로서 사명을 개시했다:

1. 그들은 육체전환 상태였고 비교적 인간이었는데, 인간 종족 가운데 하나, 즉 **유란시아의 안돈** 생명 원형질을 몸속에 지녔기 때문이다.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이 1백 명의 요원은, 그들이 전에 필사자 상태였을 때의 상태에 따라 같은 숫자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됐다. 이 집단에 속한 각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새로운 계층의 육체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오직 특별한 조건하에서 어머니 관계를 이루도록 조심스럽게 지시받았다. **행성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에게는, 특별한 행성 사명으로부터 은퇴하기 얼마 전에 후손을 낳는 것이 관례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존재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어떤 유형의 피조물이 출산되는지에 대해, 거

66:3.1 (743.8) Near the Prince's headquarters there dwelt all colors and strata of human beings. And it was from these near-by tribes that the first students of the Prince's schools were recruited. Although these early schools of Dalamatia were crude, they provided all that could be done for the men and women of that primitive age.

66:3.8 (743.9) The Prince's corporeal staff continuously gathered about them the superior individuals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after training and inspiring these students, sent them back as teachers and leaders of their respective peoples.

4. EARLY DAYS OF THE ONE HUNDRED

66:4.1 (743.10) The arrival of the Prince's staff created a profound impression. While it required almost a thousand years for the news to spread abroad, those tribes near the Mesopotamian headquarters were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eachings and conduct of the one hundred new sojourners on Urantia. And much of your subsequent mythology grew out of the garbled legends of these early days when thes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repersonalized on Urantia as supermen.

66:4.2 (744.1) The serious obstacle to the good influence of such extraplanetary teachers is the tendency of mortals to regard them as gods, but aside from the technique of their appearance on earth the Caligastia one hundred — fifty men and fifty women — did not resort to supernatural methods nor superhuman manipulations.

66:4.3 (744.2) But the corporeal staff were nonetheless superhuman. They began their mission on Urantia as extraordinary threefold beings:

66:4.4 (744.3) 1. They were corporeal and relatively human, for they embodied the actual life plasm of one of the human races, the Andonic life plasm of Urantia.

66:4.5 (744.4) These one hundred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divided equally as to sex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previous mortal status. Each person of this group was capable of becoming coparental to some new order of physical being, but they had been carefully instructed to resort to parenthood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It is customary for the corporeal staff of a Planetary Prince to procreate their successors sometime prior to retiring from special planetary service. Usually this is at, or shortly after,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66:4.6 (744.5) These special beings therefore had little or no idea as to what type of material creature

의 또는 전혀 관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들의 세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단계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전체 체계가 반역으로 혼란에 빠졌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나중에 참여한 그들은 체계의 생명 흐름에서 이미 격리돼 있었다.

캘리개스타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된 이 요원들은, 피부 색깔과 언어에서, **안돈** 종족을 닮았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똑같이 음식을 섭취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창조된 육체를 가진 이 무리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과일과 나무 열매가 있는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결정한 고려사항들 가운데 하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풍습은 **캘리개스타** 100인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이런 관습이, 가깝거나 먼 곳에 퍼져서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족, 즉 한때 고기만 먹었던 진화하는 종족들로부터 기원된 집단들의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 그 100인은 물질적이지만 초인적 존재였는데, 고귀하고 특별한 계층의 독특한 남자와 여자로 **유란시아**에서 재구성됐다.

이 집단은, **예루셈**에서 임시 시민신분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직 **사과 조율사**와 융합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자원하고 나서,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들과 연관되는 행성 봉사를 하도록 허락 받았을 때, 그들의 **조율사**가 분리됐다. 그러나 이 **예루셈** 거주자들은 초인적 존재였다--즉 그들은 성장하면서 상승하는 혼을 소유했다. 필사 생명체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 혼은 배아기(胚芽期) 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모론시아 생명체 속에 태어나고(즉 부활되고), 연속되는 모론시아 세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체험을 한다. 그리고 **캘리개스타** 100인의 혼은, 일곱 맨션 세계를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지나, **예루셈**에서 시민 자격의 신분을 얻기까지 그렇게 성장했다.

참모진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지침을 준수해서, 성교(性交)를 통한 출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체 구조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정신) 단계와 모론시아(혼) 접촉을 면밀히 탐구했다. 그리고 성벽(城壁)이 완성되기 훨씬 전인, **달라마시아**에 머물게 된 지 33년째 해에, **단족속** 집단 중에서 2_번과 7_번이 (성교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라고 간주되는) 모론시아 자아의 접촉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했으며; 이런 진귀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는, 1차 중도(中道) 피조물 가운데 첫째임이 판명됐다. 새로운 이 존재는, 행성 참모진과 그 천상의 동역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보였지만, 다양한 부족의 남녀 인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성 왕자**의 지시에 따라서, 육체전환 참모진 전체는 동일한 존재의 생산에 참여했고, 선구자 격인 **단족속** 쌍의 지침에 따라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왕자**의 참모진은, 결국 5만 명으로 이뤄진 독특한 1차 중도자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

would be produced by their sexual union. And they never did know; before the time for such a step in the prosecution of their world work the entire regime was upset by rebellion, and those who later functioned in the parental role had been isolated from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66:4.7 (744.6) In skin color and language these materialized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followed the Andonic race. They partook of food as did the mortals of the realm with this difference: The re-created bodies of this group were fully satisfied by a nonflesh diet. This was one of the considerations which determined their residence in a warm region abounding in fruits and nuts. The practice of subsisting on a nonflesh diet dates from the times of the Caligastia one hundred, for this custom spread near and far to affect the eating habits of many surrounding tribes, groups of origin in the once exclusively meat-eating evolutionary races.

66:4.8 (744.7) 2. The one hundred were material but superhuman beings, having been reconstituted on Urantia as unique men and women of a high and special order.

66:4.9 (744.8) This group, while enjoying provisional citizenship on Jerusalem, were as yet unfused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and when they volunteered and were accepted for planetary service in liaison with the descending orders of sonship, their Adjusters were detached. But these Jerusemites were superhuman beings — they possessed souls of ascendant growth.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soul is of embryonic estate; it is born (resurrected) in the morontia life and experiences growth through the successive morontia worlds. And the souls of the Caligastia one hundred had thus expanded through the progressive experiences of the seven mansion worlds to citizenship status on Jerusalem.

66:4.10 (744.9) In conformity to their instructions the staff did not engage in sexual reproduction, but they did painstakingly study their personal constitutions, and they carefully explored every imaginable phase of intellectual (mind) and morontia (soul) liaison. And it was during the thirty-third year of their sojourn in Dalamatia, long before the wall was completed, that number two and number seven of the Danite group accidentally discovered a phenomenon attendant upon the liaison of their morontia selves (supposedly nonsexual and nonmaterial); and the result of this adventure proved to be the first of the primary midway creatures. This new being was wholly visible to the planetary staff and to their celestial associates but was not visible to the men and women of the various human tribes. Upon authority of the Planetary Prince the entire corporeal staff undertook the production of similar beings, and all were successful, following the

이런 중간_유형의 피조물은, 세계 본부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큰 사명을 감당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원래부터 머문 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 준영{準靈}들에 관해서 배웠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는 이 필사자들에게는 이들이 영 세계의 전부였다.

3. **캘리개스타** 100인은, 개인적으로 불멸하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체계 생명 흐름의 해독 보충물{解毒 補充物}이 그들의 물질 형상 도처에 순환됐는데;그들이 반역을 통해서 생명 회로와의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하보나**와 **낙원**을 향한 여행을 그 후에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살아왔을 것이다.

사타니아 생명 흐름이 들어있는 이 해독 보충물은,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추출됐는데, 이 나무는 **캘리개스타**가 도착할 때, **노라티아덱**의 **지** **가**들이 **유란시아**로 보낸 **에덴시아** 떨기나무였다. **달라마시아** 시대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뜰 중앙에서 자랐으며,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물질적 존재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획득하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 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진화하는 인종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캘리개스타** 100인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과 연합했던 변경된 100인의 **안돈족속**에게는, 이 음식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100명의 **안돈족속**이 인간의 배아{胚芽} 원형질을 **왕자**의 참모진에게 기증했을 당시에,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필사 육체속으로 체계 회로의 보충물을 삽입시켰던 것을 설명해야 하며;그리하여 그들은, 육체적 죽음에 구애받지 않고, 참모진과 함께 여러 세기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다.

결국, 100명의 **안돈족속**은 상관의 새로운 형체에 자신들이 기여했음을 알게 됐고, **안돈** 부족의 바로 이 자녀들 100명은,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의 수행원으로서 본부에 남아 있었다.

5. 1백 인 무리의 조직

100인은 각각 열 명으로 구성된 자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무하도록 조직됐다. 10개의 이 협의회 가운데 두 개 이상이 합동으로 모일 때에는, 함께 모인 그런 무리를 **달리개스타**가 통솔했다. 10개의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instructions of the pioneer Danite pair. Thus did the Prince's staff eventually bring into being the original corps of 50,000 primary midwayers.

66:4.11 (745.1) These mid-type creatures were of great service in carrying on the affairs of the world's headquarters. They were invisible to human beings, but the primitive sojourners at Dalamatia were taught about these unseen semispirits, and for ages they constituted the sum total of the spirit world to these evolving mortals.

66:4.12 (745.2) 3. The Caligastia one hundred were personally immortal, or undying. There circulated through their material forms the antidotal complements of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and had they not lost contact with the life circuits through rebellion, they would have lived on indefinitely until the arrival of a subsequent Son of God, or until their sometime later release to resume the interrupted journey to Havona and Paradise.

66:4.13 (745.3) These antidotal complements of the Satania life currents were derived from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 shrub of Edentia which was sent to Urantia by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at the time of Caligastia's arrival. In the days of Dalamatia this tree grew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temple of the unseen Father, and it was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that enabled the material and otherwise mortal beings of the Prince's staff to live on indefinitely as long as they had access to it.

66:4.14 (745.4) While of no value to the evolutionary races, this supersustenance was quite sufficient to confer continuous life upon the Caligastia one hundred and also upon the one hundred modified Andonites who were associated with them.

66:4.15 (745.5) It should be explained in this connection that, at the time the one hundred Andonites contributed their human germ plasm to th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 Life Carriers introduced into their mortal bodies the complement of the system circuits; and thus were they enabled to live on concurrently with the staff, century after century, in defiance of physical death.

66:4.16 (745.6) Eventually the one hundred Andonites were made aware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new forms of their superiors, and these same one hundred children of the Andon tribes were kept at headquarters as the personal attendants of the Prince's corporeal staff.

5. ORGANIZATION OF THE ONE HUNDRED

66:5.1 (745.7) The one hundred were organized for service in ten autonomous councils of ten members each. When two or more of these ten councils met in joint session, such liaison gatherings were presided over by Daligastia.

1. 양식과 물질적 번영을 관할하는 협의회. 이 집단은 **앙**이 관장했다. 유능한 이 단체가, 인류의 양식, 물, 의복, 및 물질적 증진을 촉진시켰다. 그들은 우물 파기, 샘물 통제, 그리고 관개(灌溉)를 가르쳤다. 그들은 높은 고지대에서 온 자들과 북쪽에서 온 자들에게, 가축을 처리해서 의복으로 사용하는 발전된 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기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 짜는 방법을 소개했다.

식량을 저장하는 방법에 큰 진보가 이뤄졌다. 식량을 익힘, 말림, 및 그을림으로 보존했고; 그리하여 양식은 아주 일찍부터 재산이 됐다. 사람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굶주림이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2. 동물 길들이기와 활용을 담당하는 부서. 이 협의회는, 무거운 짐을 지거나 인간을 수송하는 일에서 그들을 돕고, 양식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땅을 일구는데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을 선택하고 사육하는 과제를 전담했다. **본**이 이 유능한 단체를 통솔했다.

길들여진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멸종된, 몇몇 유형의 유용한 동물을 길들였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고, 청색인은 코끼리를 길들이기에 이미 성공했다. 소는 양식을 위한 유용한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런 개량 작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고; 버터와 치즈는 인간에게 흔한 음식 품목이 됐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일에 소를 활용하기를 배웠지만, 말은 후대까지도 길들이지 못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쉽게 끌 수 있게 바퀴를 이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다.

우편배달용 비둘기가 처음 사용된 것도 이 시대였고, 소식을 전하거나 구조 요청을 위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본**이 지휘하는 이 집단은, 여객용(旅客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환도르 새를 훈련시키기에 성공했지만, 그것들은 3만 년 전에 멸종됐다.

3. 육식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충고하는 자들. 초기 인간은, 특정한 동물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으며, 또한 호전적인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이 집단은 **단**이 우두머리였다.

고대 도시들이 성벽(城壁)을 쌓은 목적은, 적대적인 인간들의 갑작스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성벽이 없는 곳이나 숲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 바위 움막 속, 그리고 밤에 불 피워놓기 등에 의존했다. 그러므로 이 선생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 거주지를 개선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개

These ten groups were constituted as follows:

66:5.2 (745.8) 1. *The council on food and material welfare.* This group was presided over by Ang. Food, water, clothes, and the material advancement of the human species were fostered by this able corps. They taught well digging, spring control, and irrigation. They taught those from the higher altitudes and from the north improved methods of treating skins for use as clothing, and weaving was later introduced by the teachers of art and science.

66:5.3 (746.1) Great advances were made in methods of food storage. Food was preserved by cooking, drying, and smoking; it thus became the earliest property. Man was taught to provide for the hazards of famine, which periodically decimated the world.

66:5.4 (746.2) 2. *The board of animal domestication and utilization.* This council was dedicated to the task of selecting and breeding those animals best adapted to help human beings in bearing burdens and transporting themselves, to supply food, and later on to be of service in the cultivation of the soil. This able corps was directed by Bon.

66:5.5 (746.3) Several types of useful animals, now extinct, were tamed, together with some that have continued as domesticated animals to the present day. Man had long lived with the dog, and the blue man had already been successful in taming the elephant. The cow was so improved by careful breeding as to become a valuable source of food; butter and cheese became common articles of human diet. Men were taught to use oxen for burden bearing, but the horse was not domesticated until a later date. The members of this corps first taught men to use the wheel for the facilitation of traction.

66:5.6 (746.4) It was in these days that carrier pigeons were first used, being taken on long journeys for the purpose of sending messages or calls for help. Bon's group were successful in training the great fandors as passenger birds, but they became extinct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ago.

66:5.7 (746.5) 3. *The advisers regarding the conquest of predatory animals.* It was not enough that early man should try to domesticate certain animals, but he must also learn how to protect himself from destruction by the remainder of the hostile animal world. This group was captained by Dan.

66:5.8 (746.6) The purpose of an ancient city wall was to protect against ferocious beasts as well as to prevent surprise attacks by hostile humans. Those living without the walls and in the forest were dependent on tree dwellings, stone huts, and the maintenance of night fires. It was therefore very natural that these teachers should devote much time to instructing their pupils in the improvement

선된 기법을 사용하고 함정을 이용함으로써, 동물을 제압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뤘다.

4. **지식의 전파와 보존을 담당하는 선생들.** 이 집단은, 그 초기 시절에 순전히 교육하려는 시도를 체계화하고 지휘했다. **헛**이 통솔했다. **헛**의 교육 방법은 고용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개량된 방법의 교육이 뒤따랐다. **헛**은 최초의 알파벳을 조직적으로 구성했고, 쓰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알파벳은 스물다섯 자로 구성됐다. 이런 초기 민족들이 글씨를 쓰기 위한 재료로, 나무껍질, 진흙 판, 돌 판, 가죽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양피지 형태, 그리고 말벌 집으로 만든 종이처럼 생긴 조잡한 형태의 물질 등을 사용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도서관은, **캘리개스차**가 이탈한 직후에 파괴됐는데, 200만 개 이상의 분리된 기록으로 구성됐고 “**헛**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청색인은 알파벳 쓰기를 특히 좋아했고, 그 쪽 방면으로 큰 진보를 이뤘다. 홍색인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글씨쓰기를 좋아했던 반면, 황인종은 단어와 관념을 대표하는 상징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갔고,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반역이 일어남에 따라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알파벳은 물론 아주 많은 것이 후대의 세계에 전해지지 못했다. **캘리개스차**의 배반은, 보편적 언어를 가질 희망이, 적어도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다.

5.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이 협의회는 부족들 안에서 산업{産業}을 조성하는 일과, 다양한 평화로운 집단들 사이에 거래를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노드**이었다. 이 단체는 모든 형태의 원시 제조업을 촉진시켰다. 그들은 원시인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많은 새로운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직접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했다. 그들은 과학과 예술을 전담하는 협의회가 생산한 개선된 소금의 거래를 매우 널리 확장시켰다.

최초의 상업적인 신용{信用}이 실용화 된 것은, **달라마시아** 학교에서 교육 받은 계몽된 집단 가운데에서였다. 그들은 중앙 신용 거래소로부터 동전을 확보했고, 물물 교환하는 실제 상품 대신 이것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수십만 년 동안, 이런 거래 방법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6. **제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학부.** 이 기관은 기능을 발휘하는 속도가 느렸다. **유란시아**의 문명은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망치와 필요성이라는 모루 사이에서 연마됐다. 그러나 이 집단은, 배반으로 인한 격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후대의 혼란으로 인해 그들의 수고가 중단되기 전에,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대신(곧 유령{幽靈}을 숭배하는 대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체시키려는 시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 협의회의 우두머리는 **합**이었다.

of human dwellings. By employing improved techniques and by the use of traps, great progress was made in animal subjugation.

66:5.9 (746.7) 4. *The faculty on dissemination and conservation of knowledge.* This group organized and directed the purely educational endeavors of those early ages. It was presided over by Fad. The educational methods of Fad consisted in supervision of employment accompanied by instruction in improved methods of labor. Fad formulated the first alphabet and introduced a writing system. This alphabet contained twenty-five characters. For writing material these early peoples utilized tree barks, clay tablets, stone slabs, a form of parchment made of hammered hides, and a crude form of paperlike material made from wasps' nests. The Dalamatia library, destroyed soon after the Caligastia disaffection, comprised more than two million separate records and was known as the “house of Fad.”

66:5.10 (746.8) The blue man was partial to alphabet writing and made the greatest progress along such lines. The red man preferred pictorial writing, while the yellow races drifted into the use of symbols for words and ideas, much like those they now employ. But the alphabet and much more was subsequently lost to the world during the confusion attendant upon rebellion. The Caligastia defection destroyed the hope of the world for a universal language, at least for untold ages.

66:5.11 (747.1) 5. *The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This council was employed in fostering industry within the tribes and in promoting trade between the various peace groups. Its leader was Nod. Every form of primitive manufacture was encouraged by this corps. They contributed directly to the elevation of standards of living by providing many new commodities to attract the fancy of primitive men. They greatly expanded the trade in the improved salt produced by the council on science and art.

66:5.12 (747.2) It was among these enlightened groups educated in the Dalamatia schools that the first commercial credit was practiced. From a central exchange of credits they secured tokens which were accepted in lieu of the actual objects of barter. The world did not improve upon these business method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66:5.13 (747.3) 6. *The college of revealed religion.* This body was slow in functioning. Urantia civilization was literally forged out between the anvil of necessity and the hammers of fear. But this group had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their attempt to substitute Creator fear for creature fear (ghost worship) before their labors were interrupted by the later confusion attendant upon the secession upheaval. The head of this council was Hap.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아무도, 진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계시는 제시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들은 진화의 힘이 모두 소모된 정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계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합**은, 종교 예배 형식을 설립하자는 도성 거주민의 요구에 굴복했다. 그의 집단은, 경배를 위한 일곱 개의 영창을 **달라마시아** 주민에게 제공했으며, 일상적 찬양_경구(警句)도 썼고, 결국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만유의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공경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당신 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진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나움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며; 우리 어른들과 우리 이웃에 속한 자들을 존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의 계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다산(多産)의 가축 떼를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올려줄 약속의 사람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왕자의 참모진은, 비록 인종을 개선하는 자연스런 수단과 평범한 방법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기는 했지만, 생물학적 발전이 최고로 달성되고 나면, 이어지는 진화 성장의 목표로서 새로운 인종인 **아담**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다.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들**. 이 협의회는, 공중위생을 소개하고 원시적인 위생상태를 증진시키는 데 관여했고, **럿**이 인도했다.

그 요원들이 가르친 것들 대부분은 나중에 혼란스런 와중에 소멸됐고, 20세기까지 다시 발견되지 못했다. 그들은 익히기, 끓이기, 및 굽기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또한 그런 요리법이 유아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과, 일찍 젖을 떼도록 촉진시킨다는 것도 가르쳤다.

럿이 인도하는 건강 수호자들의 초기 교훈 가운데 다수가, 크게 왜곡되고 변경됐음에도, 지구상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서 **모세** 시대까지 이어졌다.

무지한 이 민족들 사이에서 위생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방해물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이 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었고, 또한 그들 모두가 항상 미신적(迷信的)인 생각으로 불을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에 태우는 의식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데, 수천 년이 소요됐다. 그동안, 부패되는 쓰레기를 땅에 묻도록 그들을 설득했다. 이 시기의 공중위생에서 가장 큰 진보는, 햇빛이 건강을 제공하고 질병을 몰아내는 수단이라는 체험이 보급됨으로써 이뤄졌다.

66:5.14 (747.4) None of the Prince's staff would present revelation to complicate evolution; they presented revelation only as the climax of their exhaustion of the forces of evolution. But Hap did yield to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the c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rm of religious service. His group provided the Dalamatians with the seven chants of worship and also gave them the daily praise-phrase and eventually taught them “the Father's prayer,” which was:

66:5.15 (747.5) “Father of all, whose Son we honor, look down upon us with favor. Deliver us from the fear of all save you. Make us a pleasure to our divine teachers and forever put truth on our lips. Deliver us from violence and anger; give us respect for our elders and that which belongs to our neighbors. Give us this season green pastures and fruitful flocks to gladden our hearts. We pray for the hastening of the coming of the promised uplifter, and we would do your will on this world as others do on worlds beyond.”

66:5.16 (747.6) Although the Prince's staff were limited to natural means and ordinary methods of race improvement, they held out the promise of the Adamic gift of a new race as the goal of subsequent evolutionary growth upon the attainment of the height of biologic development.

66:5.17 (747.7) 7. *The guardians of health and life.* This council was concerned with the introduction of sanitation and the promotion of primitive hygiene and was led by Lut.

66:5.18 (747.8) Its members taught much that was lost during the confusion of subsequent ages, never to be rediscovered until the twentieth century. They taught mankind that cooking, boiling and roasting, was a means of avoiding sickness; also that such cooking greatly reduced infant mortality and facilitated early weaning.

66:5.19 (747.9) Many of the early teachings of Lut's guardians of health persisted among the tribes of earth on down to the days of Moses, even though they became much garbled and were greatly changed.

66:5.20 (748.1) The great obstacle in the way of promoting hygiene among these ignorant peoples consisted in the fact that the real causes of many diseases were too small to be seen by the naked eye, and also because they all held fire in superstitious regard. It required thousands of years to persuade them to burn refuse. In the meantime they were urged to bury their decaying rubbish. The great sanitary advance of this epoch came from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regarding the health-giving and disease-destroying properties of sunlight.

왕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목욕하는 것이 순전히 종교 예식이었다. 건강 요법으로 몸을 씻으려고 원시인을 설득하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룻**은 마침내 종교 선생들을 설득해서,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하는, 매주 한 번씩 정오 헌신 시간에 정결(淨潔) 예식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물로 씻기를 포함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 건강 수호자들은, 개인적인 친구관계 확인과 집단적 충성심을 상징하는 방법으로서, 서로 침을 교환하거나 피를 마시는 방법 대신 손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탁월한 지도자들의 교훈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 원시인들은 자신이 전에 시행하던, 건강을 파괴하고 질병을 조장하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풍습으로 신속하게 돌아갔다.

8.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행성 협의회**. 이 단체는, 초기 인류의 산업 기술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기여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멕**이었다.

예술과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와 화학의 기본을 배웠다. 도기(陶器) 제조법이 발달했고, 장식하는 기술이 매우 발전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이상(理想)이 크게 진보됐다. 그러나 음악은, 보라색 종족이 출현할 때까지 거의 진보되지 못했다.

선생들이 반복해 재촉했음에도, 이 원시인들은 증기 압력에 대한 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억압된 증기의 폭발력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금속 및 불을 다룰 수 있도록 설득됐으며, 그럼에도 빨강계 달궈진 금속은 초기의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멕은 **안돈족속**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색인의 예술을 증진시키기에 크게 기여했다. 청색인과 **안돈** 혈통의 혼혈 종족은,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후손을 낳았고, 그들 중에서 숙련된 조각가가 많이 나왔다. 그들은 암석이나 대리석을 다루지 않았지만, 불에 구워 단단하게 된 진흙 작품으로 **달라마시아**의 동산을 장식했다.

큰 진전은 주택 기술에서 이뤄졌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반역의 암흑기에 대부분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다.

9. **증진된 부족 관계 운영자들**. 이 집단은 인간 사회를 국가체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룻**이었다.

이 지도자들은 부족 간 결혼을 성립시키기에 많이 기여했다. 그들은 적당한 심사숙고와 친해질 충분한 기회를 가진 후에 구애(求愛)와 결혼이 이뤄지게 했다. 순전히 군사적인 전쟁 무도회가 다

66:5.21 (748.2) Before the Prince's arrival, bathing had been an exclusively religious ceremonial. It was indeed difficult to persuade primitive men to wash their bodies as a health practice. Lut finally induced the religious teachers to include cleansing with water as a part of the purification ceremonies to be practiced in connection with the noontime devotions, once a week, in th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66:5.22 (748.3) These guardians of health also sought to introduce handshaking in substitution for saliva exchange or blood drinking as a seal of personal friendship and as a token of group loyalty. But when out from under the compelling pressure of the teachings of their superior leaders, these primitive peoples were not slow in reverting to their former health-destroying and disease-breeding practices of ignorance and superstition.

66:5.23 (748.4) 8. *The planetary council on art and science*. This corps did much to improve the industrial technique of early man and to elevate his concepts of beauty. Their leader was Mek.

66:5.24 (748.5) Art and science were at a low ebb throughout the world, but the rudiments of physics and chemistry were taught the Dalamatians. Pottery was advanced, decorative arts were all improved, and the ideals of human beauty were greatly enhanced. But music made little progress until after the arrival of the violet race.

66:5.25 (748.6) These primitive men would not consent to experiment with steam power, notwithstanding the repeated urgings of their teachers; never could they overcome their great fear of the explosive power of confined steam. They were, however, finally persuaded to work with metals and fire, although a piece of red-hot metal was a terrorizing object to early man.

66:5.26 (748.7) Mek did a great deal to advance the culture of the Andonites and to improve the art of the blue man. A blend of the blue man with the Andon stock produced an artistically gifted type, and many of them became master sculptors. They did not work in stone or marble, but their works of clay, hardened by baking, adorned the gardens of Dalamatia.

66:5.27 (748.8) Great progress was made in the home arts, most of which were lost in the long and dark ages of rebellion, never to be rediscovered until modern times.

66:5.28 (748.9) 9. *The governors of advanced tribal relations*. This was the group intrusted with the work of bringing human society up to the level of statehood. Their chief was Tut.

66:5.29 (748.10) These leaders contributed much to bringing about intertribal marriages. They fostered courtship and marriage after due deliberation and full opportunity to become acquainted. The purely

들어졌고 유용한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했다. 많은 경기 종목이 소개됐지만, 고대의 이 사람들은 무뚝뚝한 민족이었으며; 이 초기 부족들에게는 유머가 거의 없었다. 행성의 폭동으로 인한 분열이 있은 후에, 이런 풍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튀트와 그의 동역자들은, 평화로운 성질의 집단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규제하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종족 간의 협조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 정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달라마시아** 근처에서는 더 진보된 문화가 개발됐고, 이렇게 개발된 사회관계는,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왕자**의 본부에서 널리 보급된 문명의 원형{原型}은, 다른 곳에서 진화된 야만적 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마치 **남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몸집 작은 **부시먼** 종족의 미개한 문명과 전적으로 다른 것과 같다.

10. 부족의 협조와 인종 간의 협동을 담당하는 최고 법정. **반이** 이 최고 협의회를 지휘했고, 인간사{人間事}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9개의 다른 특별 위원회 전체의 상소{上訴}를 처리하는 법정이었다. 이 협의회는 폭 넓게 활동했고, 다른 집단들에게 특별히 배정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위임받은, 폭넓게 활동하는 협의회였다. 선발된 이 단체는 **유란시아**의 최고 법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락받기 전에, 먼저 **에덴시아**의 **성좌 아버지**들의 승인을 받았다.

6. 왕자의 통치

한 세계의 문화 수준은, 거기서 태어난 존재들의 사회 유산으로 측정되며, 문화 발전 속도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새롭고 향상된 관념을 납득하는 역량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전통을 노예처럼 따르면, 과거와 현재를 감상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과 협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독창성을 억압하고 인격체의 창의력을 노예화시킨다. **캘리개스차** 100인이 도래해서 당시의 사회 집단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부르짖는 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온 세계는 전통에 사로잡힌 사회관행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익한 이 방식이 너무 일찍 중단됐으므로, 인종들은 관습에 노예 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 관례가 여전히 지나치게 **유란시아**를 지배한다.

캘리개스차 100인은--곧 **사타니아** 맨션 세계의 졸업생은-- **예루셈**의 기술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지만, 원시 인간이 사는 미개한 행성에서는 그런 지식이 거의 쓸모없었다. 이 지혜로운 존재들은, 당시의 원시 종족들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military war dances were refined and made to serve valuable social ends. Many competitive games were introduced, but these ancient folk were a serious people; little humor graced these early tribes. Few of these practices survived the subsequent disintegration of planetary insurrection.

66:5.30 (749.1) Tut and his associates labored to promote group associations of a peaceful nature, to regulate and humanize warfare, to co-ordinate intertribal relations, and to improve tribal governments. In the vicinity of Dalamatia there developed a more advanced culture, and these improved social relations were very helpful in influencing more remote tribes. But the pattern of civilization prevailing at the Prince's headquarters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barbaric society evolving elsewhere, just as the twentieth-century society of Capetown, South Africa, is totally unlike the crude culture of the diminutive Bushmen to the north.

66:5.31 (749.2) 10. The supreme court of tribal co-ordination and racial co-operation. This supreme council was directed by Van and was the court of appeals for all of the other nine special commissions charged with the supervision of human affairs. This council was one of wide function, being intrusted with all matters of earthly concern which were not specifically assigned to the other groups. This selected corps had been approv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Edentia before they were authorized to assume the func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Urantia.

6. THE PRINCE'S REIGN

66:6.1 (749.3) The degree of a world's culture is measured by the social heritage of its native beings, and the rate of cultural expansion is wholly determined by the ability of its inhabitants to comprehend new and advanced ideas.

66:6.2 (749.4) Slavery to tradition produces stability and co-operation by sentimentally link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but it likewise stifles initiative and enslaves the creative powers of the personality. The whole world was caught in the stalemate of tradition-bound mores when the Caligastia one hundred arrived and began the proclamation of the new gospel of individual initiative within the social groups of that day. But this beneficent rule was so soon interrupted that the races never have been wholly liberated from the slavery of custom; fashion still unduly dominates Urantia.

66:6.3 (749.5) The Caligastia one hundred — graduates of the Satania mansion worlds — well knew the arts and culture of Jerusem, but such knowledge is nearly valueless on a barbaric planet populated by primitive humans. These wise beings

일괄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았다. 그들은 인간 종족들 속에서 이뤄지는 느린 속도의 진화를 잘 이해했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경시키는 어떤 급진적(急進的) 시도도 현명하게 삼갔다.

10개의 행성 위원회 각각은 위임받은 관심거리들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다시 그들의 민족에게 돌려보내서 사회를 증진시키는 특사(特使)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민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민족을 사자(使者)로 보내지 않았다. 주어진 부족이나 종족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은, 반드시 그 부족 또는 종족의 원주민이었다. 그 100인은, 아무리 우수한 종족이라도, 그들의 습관이나 사회관행을 다른 부족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성된 각 종족의 사회관행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끈기 있게 작업했다. **유란시아**의 단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관습을 새롭고 더 나은 풍습과 바꾸려고 **달라마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우수한 정신들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증진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달라마시아 선생들은, 생물학적 진화로 생기는 순전히 자연스런 선택에, 의도적인 사회적 선택을 덧붙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진화를 현저히 촉진시켰다. 그들의 목적은, 진화로 진보하는 것이었고, 계시로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종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미미한 종교와 도덕을 획득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으며, 계몽되고 우수한 존재들이, 퇴보된 종족들을 과도한 교훈과 과도한 계몽으로 증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혼돈과 실망스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진보를 인류로부터 빼앗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이 초인적 존재들은 잘 알았다.

아프리카 중심부에서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부모의 통제와 지시 아래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21세에 이른 후에는 부모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풍습을 단 하나의 세대 동안에 대체시키려고 추구한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혼란만 야기되고 모든 권위가 붕괴될 것이다.

7. 달라마시아의 생활

왕자의 본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비록 그 시대의 원시인을 압도할 정도로 설계돼

knew better than to undertake the *sudden* transformation, or the en masse uplifting, of the primitive races of that day. They well understood the slow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and they wisely refrained from any radical attempts at modifying man's mode of life on earth.

66:6.4 (749.6) Each of the ten planetary commissions set about *slowly* and naturally to advance the interests intrusted to them. Their plan consisted in attracting the best minds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after training them, sending them back to their people as emissaries of social uplift.

66:6.5 (749.7) Foreign emissaries were never sent to a race except upon the specific request of that people. Those who labored for the uplift and advancement of a given tribe or race were always natives of that tribe or race. The one hundred would not attempt to impose the habits and mores of even a superior race upon another tribe. Always they patiently worked to uplift and advance the time-tried mores of each race. The simple folk of Urantia brought their social customs to Dalamatia, not to exchange them for new and better practices, but to have them uplifted by contact with a higher culture and by association with superior minds. The process was slow but very effectual.

66:6.6 (750.1) The Dalamatia teachers sought to add conscious social selection to the purely natural selection of biologic evolution. They did not derange human society, but they did markedly accelerate its normal and natural evolution. Their motive was progression by evolution and not revolution by revelation. The human race had spent ages in acquiring the little religion and morals it had, and these supermen knew better than to rob mankind of these few advances by the confusion and dismay which always result when enlightened and superior beings undertake to uplift the backward races by overteaching and overenlightenment.

66:6.7 (750.2) When Christian missionaries go into the heart of Africa, where sons and daughters are supposed to remain 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ir parents throughout the lifetime of the parents, they only bring about confusion and the breakdown of all authority when they seek, in a single generation, to supplant this practice by teaching that these children should be free from all parental restraint after they have attained the age of twenty-one.

7. LIFE IN DALAMATIA

66:7.1 (750.3) The Prince's headquarters, though exquisitely beautiful and designed to awe the primitive men of that age, was altogether modest.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수했다. 축산업을 소개함으로써 결국 농업의 발전을 북돋우는 것이, 외계에서 들어온 이 선생들의 목적이었던 만큼, 건물은 유별나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 도성의 성벽 안에 있는 경작지(耕作地)는, 약 2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목초지와 밭을 제공했다.

중앙에 있는 경배 드리는 성전과 감독하는 초인간 집단의 10개 협의회 관저(官邸)들 내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모양이었지만, 후대에 개발된 것들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했고, 전체적으로 원시적인 형태였다. 이 문화 본부에는, **유란시아**에 자연스럽게 속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은,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주거지들을 관장했는데, 세계적인 사회 중심지이고 교육의 본산지인 거기에 머물면서 관찰하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설계된 집이 되도록 유지했다.

명확한 가족생활 체제와, 비교적 정착된 장소의 한 주거지에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시작됐고, 주로 100인과 그 제자들의 모범과 교훈에 따라서 이뤄졌다. 사회 단위로서의 가정은, **달라마시아**의 초인적 남녀가 인류를 인도해서, 그들의 손주와 그 손주의 자손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도록 만들 때까지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미개한 사람은 자기 자녀만 사랑하지만,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손 역시 사랑한다.

왕자의 참모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살았다. 정말로, 그들에게 자신이 낳은 자녀는 없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있는, 원형이 되는 50개의 가정에는, **안돈**의 후예와 **상익** 인종의 우수한 가정들로부터 소집된 양자와 양녀가 항상 500명 이상 살았으며; 이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고아였다. 아이들은 이 초인적 부모의 훈련과 교육에 호의를 보였고; 그 후에, (열세 살부터 열다섯 살 사이에 입학하는) **왕자**의 학교들에서 3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 그들 각자의 인종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에게 **왕자**의 사자(使者)로서 임명받을 준비가 됐다.

직업학교 식으로 가르치려는 **달라마시아** 계획을 **헛이** 후원했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유익한 과제를 매일 실행함으로써 자활(自活)해 나갔다. 이 교육 계획은 성품의 발달에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육체 단련을 첫째로 삼았다. 지침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남녀가 같이 학생들을 지도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르쳤다. 이 집단 훈육의 절반은 성별(性別)로 행해졌으며; 나머지 절반은 합동으로 교육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수공(手工) 기술을 배웠고, 여러 집단이나 반으로 나뉘어 교제했다. 그들은

The buildings were not especially large as it was the motive of these imported teachers to encourage the eventual development of agricul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imal husbandry. The land provision within the city walls was sufficient to provide for pasturage and gardening for the support of a population of about twenty thousand.

66:7.2 (750.4) The interiors of the central temple of worship and the ten council mansions of the supervising groups of supermen were indeed beautiful works of art. And while the residential buildings were models of neatness and cleanliness, everything was very simple and altogether primitive in comparison with later-day developments. At this headquarters of culture no methods were employed which did not naturally belong on Urantia.

66:7.3 (750.5) The Prince's corporeal staff presided over simple and exemplary abodes which they maintained as homes designed to inspire and favorably impress the student observers sojourning at the world's social center and educational headquarters.

66:7.4 (750.6) The definite order of family life and the living of one family together in one residence of comparatively settled location date from these times of Dalamatia and were chiefly due to the example and teachings of the one hundred and their pupils. The home as a social unit never became a success until the supermen and superwomen of Dalamatia led mankind to love and plan for their grand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s children. Savage man loves his child, but civilized man loves also his grandchild.

66:7.5 (750.7) The Prince's staff lived together as fathers and mothers. True, they had no children of their own, but the fifty pattern homes of Dalamatia never sheltered less than five hundred adopted little ones assembled from the superior families of the Andonic and Sangik races; many of these children were orphans. They were favored with the discipline and training of these superparents; and then, after three years in the schools of the Prince (they entered from thirteen to fifteen), they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ready to receive their commissions as emissaries of the Prince to the needy tribes of their respective races.

66:7.6 (751.1) Fad sponsored the Dalamatia plan of teaching that was carried out as an industrial school in which the pupils learned by doing, and through which they worked their way by the daily performance of useful tasks. This plan of education did not ignore thinking and feeling i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but it gave first place to manual training. The instruction was individual and collective. The pupils were taught by both men and women and by the two acting conjointly. One half of this group instruction was by sexes; the other half was coeducational. Students were taught

비교적 나이 어린 집단, 나이 많은 집단, 그리고 어른들과 친하게 지내는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또래인 자들과 협동 작업을 하는 것도 배웠다. 또한 그들은, 가족 집단, 놀이하는 소 집단, 그리고 학급{學級} 같은 연합에도 익숙해졌다.

각자 자기 인종과 함께 일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 받은 후대의 학생 중에는, 서부 **인도**의 고지대에서 온 **안돈족속**이 있었고, 홍색인 및 청색인의 대표자들도 있었으며, 더 후대에는 소수의 황인종도 훈련 받았다.

합은 초기 인종들에게 도덕법{道德法}을 제시했다. 이 규범은 “**아버지의 길**”이라고 알려졌으며, 다음과 같은 7개의 지침으로 구성됐다:

1. 만유의 **아버지**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마라.
2. 세상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을 거역하지 말고, 그의 초인적 동역자들에게도 불경함을 보이지 마라.
3. 백성의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4.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를 죽이지 마라.
5.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지 마라.
6. 친구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7. 부모와 부족의 어른에게 무례하지 마라.

이것은 거의 30만 년 동안 **달라마시아**의 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이 여러 개의 돌 위에 새겨졌고,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해안선 멀리 물밑에 묻혀 있다. 각 요일마다 이 계명 중에서 하나를 마음 속에 묵상하는 것이 관습이 됐고, 그것을 식사시간의 감사 기도와 인사로 사용했다.

이 시대의 날짜 계산은, 월력{月曆}, 즉 28일을 한 기간으로 삼는 방법을 사용했다. 낮과 밤을 제외하고는, 이것만이 초기 민족들에게 알려진 시간 계산법이었다.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은 7일을 한 주{週}로 삼는 방법을 소개했고, 7일이 28일의 4분의 1이라는 사실에서 형성됐다. 연방우주에서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일반 시간 계산법에 영적 암시를 도입하게 되는 기회를 그들에게 확실히 제공했다. 그러나 한 주라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기원된 경우는 전혀 없다.

그 도성{都城} 주변에 100마일 반경까지는 매우 잘 정착됐다. 도성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는, **왕자**의 학교를 졸업한 수백 명의 사람이 축산업에

manual dexterity as individuals and were socialized in groups or classes. They were trained to fraternize with younger groups, older groups, and adults, as well as to do teamwork with those of their own ages. They were also familiarized with such associations as family groups, play squads, and school classes.

66:7.7 (751.2) Among the later students trained in Mesopotamia for work with their respective races were Andonites from the highlands of western India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d men and the blue men; still later a small number of the yellow race were also received.

66:7.8 (751.3) Hap presented the early races with a moral law. This code was known as “The Father’s Way” and consisted of the following seven commands:

66:7.9 (751.4) 1. You shall not fear nor serve any God but the Father of all.

66:7.10 (751.5) 2. You shall not disobey the Father’s Son, the world’s ruler, nor show disrespect to his superhuman associates.

66:7.11 (751.6) 3. You shall not speak a lie when called before the judges of the people.

66:7.12 (751.7) 4. You shall not kill men, women, or children.

66:7.13 (751.8) 5. You shall not steal your neighbor’s goods or cattle.

66:7.14 (751.9) 6. You shall not touch your friend’s wife.

66:7.15 (751.10) 7. You shall not show disrespect to your parents or to the elders of the tribe.

66:7.16 (751.11) This was the law of Dalamatia for almost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nd many of the stones on which this law was inscribed now lie beneath the waters off the shores of Mesopotamia and Persia. It became the custom to hold one of these commands in mind for each day of the week, using it for salutations and mealtime thanksgiving.

66:7.17 (751.12) The time measurement of these days was the lunar month, this period being reckoned as twenty-eight days. That, with the exception of day and night, was the only time reckoning known to the early peoples. The seven-day week was introduced by the Dalamatia teachers and grew out of the fact that seven was one fourth of twenty-eight. The significance of the number seven in the superuniverse undoubtedly afforded them opportunity to introduce a spiritual reminder into the common reckoning of time. But there is no natural origin for the weekly period.

66:7.18 (751.13) The country around the city was quite well settled within a radius of one hundred mile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city, hundreds of

종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참모진과 수많은 인간 협조자로부터 받은 지침을 실행에 옮겼다. 소수의 사람이 농업과 원예에 종사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형벌로서, 인류가 농사짓는 고통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들의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배반한 **캘리개스차**의 지도하에 사람이 **루시퍼** 반역의 어리석음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벌칙이 아니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에 진보된 문명을 설립하기 위해서 고유하게 있는 것이며,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때부터, **캘리개스차**가 반역자 **루시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그 비극의 시대 사이에 있었던 30만 년 내내, 이 명령은 그들의 전체 교훈의 핵심이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 활동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허용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반역이 발발했을 때, **달라마시아**에는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다. 이 숫자에는 정규 학생들이 포함되지만, 항상 1,000명 이상의 숫자를 유지하는 방문자와 관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먼 옛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진보가 이뤄졌었는지, 너희는 거의 또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당시에 인간들이 획득했던 거의 모든 놀라운 소득은, 속임수와 선동으로 점철된 **캘리개스차**의 파멸 이후에 따라온 끔찍스런 혼란과 비천한 영적 암흑으로 인해, 실제로 완전히 사라졌다.

8. 캘리개스차의 불행

캘리개스차의 오랜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의 행위 가운데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색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였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의 모든 무리를 편드는 경향이 있었고, 비난하기 위해 완곡하게 표현하는 자들에게 대개 공감(共感)했다. 권위에 지배받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통제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언제나 완곡하게 반항하는, 이런 경향이 초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간파했다. 상부 방침에는 약하게 화내고, 상급 권위 아래서는 약간 반항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그는 항상 우주 통치자들에게 충성하고, **성좌 아버지**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입증됐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고약한 배반이 있을 때까지, 어떤 실체적 결점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퍼와 **캘리개스차** 둘 다, 그들의 비판적 경향, 그리고 자만심이 미묘하게 발전하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되게 자신을 중요시여기는 것에 관해, 끈기 있는 가르침과 사랑의 경고를 받아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도와주려 했던 이런 모

graduates of the Prince's schools engaged in animal husbandry and otherwise carried out the instruction they had received from his staff and their numerous human helpers. A few engaged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66:7.19 (751.14) Mankind was not consigned to agricultural toil as the penalty of supposed sin. "In the sweat of your face shall you eat the fruit of the fields" was not a sentence of punishment pronounced because of man's participation in the follies of the Lucifer rebell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The cultivation of the soil is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ing civilizati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this injunction was the center of all teaching of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throughout the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which intervened between their arrival on Urantia and those tragic days when Caligastia threw in his lot with the rebel Lucifer. Work with the soil is not a curse; rather is it the highest blessing to all who are thus permitted to enjoy the most human of all human activities.

66:7.20 (752.1) At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Dalamatia had a resident population of almost six thousand. This number includes the regular students but does not embrace the visitors and observers, who always numbered more than one thousand. But you can have little or no concept of the marvelous progress of those faraway times; practically all of the wonderful human gains of those days were wiped out by the horrible confusion and abject spiritual darkness which followed the Caligastia catastrophe of deception and sedition.

8. MISFORTUNES OF CALIGASTIA

66:8.1 (752.2) In looking back over the long career of Caligastia, we find only one outstanding feature of his conduct that might have challenged attention; he was ultraindividualistic. He was inclined to take sides with almost every party of protest, and he was usually sympathetic with those who gave mild expression to implied criticism. We detect the early appearance of this tendency to be restless under authority, to mildly resent all forms of supervision. While slightly resentful of senior counsel and somewhat restive under superior authority, nonetheless, whenever a test had come, he had always proved loyal to the universe rulers and obedient to the mandates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No real fault was ever found in him up to the time of his shameful betrayal of Urantia.

66:8.2 (752.3)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Lucifer and Caligastia had been patiently instructed and lovingly warned respecting their critical tendencies and the subtle development of their pride of self and its associated exaggeration of the feeling of

든 노력은, 근거 없는 비판이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개입이라고 잘못 오해돼 왔다. **캘리개스차**와 **루시퍼** 둘 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충고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을 지배하기 시작한, 매우 비난 받을 만한 의도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심판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자라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사심 없는 충고자들을 비판했다.

캘리개스차 왕자가 도착한 이래, 행성의 문명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의 30만 년 동안 진보했다. 생명체 변경 구체가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진화의 불안정으로 말미암는 특이한 사건들 및 수많은 변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루시퍼**의 반역 및 그와 동시에 일어난 **캘리개스차** 배반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유란시아**는 그 행성 경력에서 매우 만족스런 진전을 이뤘다. 차후의 모든 역사는, 후대(後代)에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행성 사명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큰 실수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변경됐다.

유란시아의 왕자는,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암흑세계로 들어갔고, 그리하여 이 행성에서 오래 지속되는 혼란을 일으켰다. 성좌 통치자 및 다른 우주 권위자들의 협조적 조치에 따라서, 그는 나중에 주권을 뺏겼다. 그는 **아담**이 지구에 머물게 될 때까지, 고립된 **유란시아**의 어쩔 수 없는 흥망을 함께 나눴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새로운 보라색 인종의 생혈(生血)이 주입됨으로써 필사 인종들에게 중진이 이뤄지게 하는 계획이 실패하도록,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인간의 관심사를 교란시키는 타락한 **왕자**의 능력은, **아브라함** 시대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필사자로 육신화함으로써 크게 줄어들었으며; 나중에, **미가엘**이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이 배반한 **왕자**는 마침내 **유란시아**에서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

유란시아에서 인간 비슷한 마귀에 대한 교리는, 배반하고 사악한 **캘리개스차**의 행성 실재에 어느 정도 기초를 뒀더라도, 정상 인간 정신이 자유롭고 자연스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허구다. 심지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되기 전에도, **캘리개스차**나 **달리개스차**는 필사자를 억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개인이든지 강요해서 인간 의지를 거슬리는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들 수도 결코 없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용건에서 주권을 가지며; 내주하는 **사조 조율사**조차, 사람 자신의 의지가 선택한 것에 반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라도 행동하도록 억지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의 이 반역자는, 옛 부하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빼앗긴 채,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내릴, **루시퍼**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존재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self-importance. But all of these attempts to help had been misconstrued as unwarranted criticism and as unjustified interference with personal liberties. Both Caligastia and Lucifer judged their friendly advisers as being actuated by the very reprehensible motives which were beginning to dominate their own distorted thinking and misguided planning. They judged their unselfish advisers by their own evolving selfishness.

66:8.3 (752.4) From the arrival of Prince Caligastia, planetary civilization progressed in a fairly normal manner for almost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side from being a life-modification sphere and therefore subject to numerous irregularities and unusual episodes of evolutionary fluctuation, Urantia progressed very satisfactorily in its planetary career up to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oncurrent Caligastia betrayal. All subsequent history has been definitely modified by this catastrophic blunder as well as by the later failure of Adam and Eve to fulfill their planetary mission.

66:8.4 (752.5) The Prince of Urantia went into darkness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thus precipitating the long confusion of the planet. He was subsequently deprived of sovereign authority by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other universe authorities. He shared the inevitable vicissitudes of isolated Urantia down to the time of Adam's sojourn on the planet and contributed something to the miscarriage of the plan to uplift the mortal races through the infusion of the lifeblood of the new violet race —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66:8.5 (753.1) The power of the fallen Prince to disturb human affairs was enormously curtailed by the mortal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days of Abraham; and subsequently, during the life of Michael in the flesh, this traitorous Prince was finally shorn of all authority on Urantia.

66:8.6 (753.2) The doctrine of a personal devil on Urantia, though it had some foundation in the planetary presence of the traitorous and iniquitous Caligastia, was nevertheless wholly fictitious in its teachings that such a “devil” could influence the normal human mind against its free and natural choosing. Even before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neither Caligastia nor Daligastia was ever able to oppress mortals or to coerce any normal individual into doing anything against the human will. The free will of man is supreme in moral affairs; ev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refuses to compel man to think a single thought or to perform a single act against the choosing of man's own will.

66:8.7 (753.3) And now this rebel of the realm, shorn of all power to harm his former subjects, awaits the final adjudication, by the Uversa Ancients of Days, of all who participated in the Lucifer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rebellion.

^{66:8.8 (753.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67편. 행성의 반역

⇨ 066

유란시아 책

06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7편
행성의 반역

섹션

소개

1. 캘리개스차의 배반
2. 반역이 발발함
3. 흑독했던 7년의 세월
4. 반역 이후의 캘리개스차 1백 인
5. 반역의 직접 결과
6. 반--흔들리지 않는 자
7. 죄의 간접 영향
8. 반역 때 나타난 인간 영웅

소개

과거의 어떤 중대한 시기들에 대한 지식, 그 중에서도 특히 행성에 반역이 발생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 없이는, **유란시아**에서 인간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 격변이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의 진화와 영적 발전 과정을 현저히 변경시켰다. 지구의 초물리적 역사 전체가, 파괴적인 이 재난으로 심하게 영향 받았다.

1. 캘리개스차의 배반

루시퍼의 보좌관인 **사탄**이 정기 시찰(視察)의 일환으로 방문하고 있을 때, **캘리개스차**는 30만 년 동안 **유란시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탄**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너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놀랄 것이 없음은, **사탄** 자신이 찬

PAPER 67
THE PLANETARY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aligastia Betrayal
2. The Outbreak of Rebellion
3. The Seven Crucial Years
4. The Caligastia One Hundred after Rebellion
5. Immediate Results of Rebellion
6. Van — The Steadfast
7. Remote Repercussions of Sin
8. The Human Hero of the Rebellion

INTRODUCTION

67:0.1 (754.1)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human existence on Urantia are impossible of understanding without a knowledge of certain great epochs of the past, notably the occurrence and consequences of the planetary rebellion. Although this upheaval did not seriously interfere with the progress of organic evolution, it did markedly modify the course of social evolution and of spiritual development. The entire superphysical history of the planet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this devastating calamity.

1. THE CALIGASTIA BETRAYAL

67:1.1 (754.2) For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Caligastia had been in charge of Urantia when Satan, Lucifer's assistant, made one of his periodic inspection calls. And when Satan arrived on the planet, his appearance in no way resembled your caricatures of his nefarious majesty. He was, and still is, a Lanonandek Son of great brilliance. “And no marvel, for Satan himself

란한 빛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 시찰 과정에서, 당시에 루시퍼가 획책했던 “자유 선언”에 대해, 사탄이 캘리개스차에게 알려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왕자는 반역이 공표{公表}되는 즉시 행성을 넘겨주기로 동의했다. 충성스런 우주 인격체들은, 맡은 책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반한 것 때문에, 캘리개스차 왕자를 특별히 경멸했다. 창조주 아들은 이 치욕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다: “너는 네 지휘자인 루시퍼를 닮았고, 그의 죄악을 사악하게 이어받았다. 그는 진리에 거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_높아지려 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지방우주의 어떤 경영 업무에서든지, 새롭게 사람이 거주하게 된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복지와 안내를 책임지는 행성 왕자에게 맡긴 것보다 더 신성시되는 높은 책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惡} 중에서, 맡은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친구들에게 불충하는 것보다 더 인격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캘리개스차는, 고의로 이런 죄를 범하면서, 자기 인격을 너무나 철저하게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게 됐다.

죄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 철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죄{罪}는 시공우주 실체에 대해 고의로 반항하는, 인격체의 태도다. 실책은 실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惡}은 우주 실체에 대한 편파적인 깨달음, 또는 부적응{不適應}이다. 그러나 죄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이며--즉 영적인 진보에 대항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반면에 죄악{罪惡}은 공인된 실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이고, 포괄적 광기{狂氣}에 가깝도록 인격이 파괴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실책{失策}은 지적 예민함의 결핍을; 악은 지혜의 부족을; 죄는 비참한 영적 빈곤을 암시하지만; 죄악은 인격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죄를 매우 여러 번 선택하고 자주 반복하면,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 습관적인 죄인은 쉽게 죄악을 범하게 되고, 우주와 거기 있는 신성한 실체들 전체에 대항해서 전심으로 반역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만성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자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전심으로 비통함을 체험할지,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일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회의적이다.

2. 반역이 발발함

사탄의 시찰이 있는 직후에, 그리고 행성 경영 당국이 유란시아에서 있을 큰 사건을 깨닫기 전에, 북부 대륙이 한겨울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캘리개스차는 동역자 달리개스차와 긴 시간 논의

is a brilliant creature of light.”

67.1.2 (754.3) In the course of this inspection Satan informed Caligastia of Lucifer's then proposed “Declaration of Liberty,” and as we now know, the Prince agreed to betray the planet upon the announcement of the rebellion. The loyal universe personalities look with peculiar disdain upon Prince Caligastia because of this premeditated betrayal of trust. The Creator Son voiced this contempt when he said: “You are like your leader, Lucifer, and you have sinfully perpetuated his iniquity. He was a falsifier from the beginning of his self-exaltation because he abode not in the truth.”

67.1.3 (754.4) In all the administrative work of a local universe no high trust is deemed more sacred than that reposed in a Planetary Prince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and guidance of the evolving mortals on a newly inhabited world. And of all forms of evil, none are more destructive of personality status than betrayal of trust and disloyalty to one's confiding friends. In committing this deliberate sin, Caligastia so completely distorted his personality that his mind has never since been able fully to regain its equilibrium.

67.1.4 (754.5) There are many ways of looking at sin, but from the universe philosophic viewpoint sin is the attitude of a personality who is knowingly resisting cosmic reality. Error might be regarded as a misconception or distortion of reality. Evil is a partial realization of, or maladjustment to, universe realities. But sin is a purposeful resistance to divine reality — a conscious choosing to oppose spiritual progress — while iniquity consists in an open and persistent defiance of recognized reality and signifies such a degree of personality disintegration as to border on cosmic insanity.

67.1.5 (755.1) Error suggests lack of intellectual keenness; evil, deficiency of wisdom; sin, abject spiritual poverty; but iniquity is indicative of vanishing personality control.

67.1.6 (755.2) And when sin has so many times been chosen and so often been repeated, it may become habitual. Habitual sinners can easily become iniquitous, become wholehearted rebels against the universe and all of its divine realities. While all manner of sins may be forgiven, we doubt whether the established iniquiter would ever sincerely experience sorrow for his misdeeds or accept forgiveness for his sins.

2. THE OUTBREAK OF REBELLION

67.2.1 (755.3) Shortly after Satan's inspection and when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was on the eve of the realization of great things on Urantia, one day, midwinter of the northern continents,

했고, 그 후에 **달리개스차**는 **유란시아**의 10개 협의회를 특별히 소집했다. 이 집회는, **캘리개스차 왕자**가 자신이 **유란시아**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선언하려 한다는 발표와 함께 시작됐으며, 행정 정부의 재구성 과 경영적 권위를 갖는 이 부서들을 나중에 다시 배치할 때까지, 모든 경영 집단은 모든 기능과 권한을 피신탁인{彼信託人}인 **달리개스차**에게 넘겨줌으로써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어리둥절케 하는 이런 요구가 발표된 후에, 협조를 담당하는 최고 협의회 의장인 **반**의 탁월한 호소가 이어졌다. 뛰어난 실력의 경영자이면서 유능한 법학자인 이 의장은, **캘리개스차**가 획책하는 행위가 행정 반역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했고,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인 **루시퍼**에게 항소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호소했으며; 전체 참모진의 지지를 얻었다. 그에 따라서, 항소가 **예루셈**에 제기됐고, **캘리개스차**를 **유란시아**의 최고 주권자로 임명한다는 명령과, 그의 지시에 절대로 충성하고 무조건 충성하라는 명령이 즉시 하달됐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송고한 **반**은 일곱 시간에 걸친 잇을 수 없는 긴 연설을 통해서, **네바돈** 우주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경멸하는, **달리개스차**, **캘리개스차**, 및 **루시퍼**를 정식으로 고발했으며;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지지와 확인을 호소했다.

그러는 사이에 체계 회로들이 단절됐으며; **유란시아**는 고립됐다. 행성에 있는 천상{天上}의 생명체 집단은 모두,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고립되어, 외부의 어떤 충고와 조언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됐음을 발견했다.

달리개스차는, **캘리개스차**가 “**유란시아**의 하 나님

이라

이런 투쟁은 7년 이상 계속됐다. 각 인격체가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에덴시아**의 권위자들은 방해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Caligastia held a prolonged conference with his associate, Daligastia, after which the latter called the ten councils of Urantia in session extraordinary. This assembly was opened with the statement that Prince Caligastia was about to proclaim himself absolute sovereign of Urantia and demanded that all administrative groups abdicate by resigning all of their functions and powers into the hands of Daligastia as trustee, pen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lanetary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redistribution of these offices of administrative authority.

67:2.2 (755.4) The presentation of this astounding demand was followed by the masterly appeal of Van,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of coordination. This distinguished administrator and able jurist branded the proposed course of Caligastia as an act bordering on planetary rebellion and appealed to his conferees to abstain from all participation until an appeal could be taken to Lucifer, the System Sovereign of Satania; and he won the support of the entire staff. Accordingly, appeal was taken to Jerusalem, and forthwith came back the orders designating Caligastia as supreme sovereign on Urantia and commanding absolute and unquestioning allegiance to his mandates. And it was in reply to this amazing message that the noble Van made his memorable address of seven hours' length in which he formally drew his indictment of Daligastia, Caligastia, and Lucifer as standing in contempt of the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he appeal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for support and confirmation.

67:2.3 (755.5) Meantime the system circuits had been severed; Urantia was isolated. Every group of celestial life on the planet found itself suddenly and without warning isolated, utterly cut off from all outside counsel and advice.

67:2.4 (755.6) Daligastia formally proclaimed Caligastia “God of Urantia and supreme over all.” With this proclamation before them, the issues were clearly drawn; and each group drew off by itself and began deliberations, discussions destined eventually to determine the fate of every superhuman personality on the planet.

67:2.5 (755.7) Seraphim and cherubim and other celestial beings were involved in the decisions of this bitter struggle, this long and sinful conflict. Many superhuman groups that chanced to be on Urantia at the time of its isolation were detained here and, like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were compelled to choose between sin and righteousness — between the ways of Lucifer and the will of the unseen Father.

67:2.6 (756.1) For more than seven years this struggle continued. Not until every personality concerned had made a final decision, would or did the authorities of Edentia interfere or intervene.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때가 되기까지, **반**과 그의 충성스런 동역자들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오랫동안의 염려와 견딜 수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 흑독했던 7년의 세월

사타니아의 수도인 **예루셈**에서 일어난 반역을, **멜기세덱** 협의회가 널리 알렸다. 비상대책 **멜기세덱**들이 즉시 **예루셈**으로 파견됐고, **가브리엘**은, 권위에 도전 받게 된 **창조주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겠다고 자청했다. **사타니아**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그 체계는 고립됐고, 그 자매 체계들로부터 격리됐다. “하늘에서”, 즉 **사타니아**의 본부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지역 체계의 온갖 행성으로 확산됐다.

유란시아에서는, 100명의 육체전환 참모진 가운데 (**반**을 포함해서) 40명이 반란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 참모진의 인간 보조원(즉 변경된 보조원 및 기타 보조원) 중에서 다수 역시, **미가엘**과 그의 우주 정부에 대한 수호자가 됐다. 스라빔과 체루빔 중에서는 몹시 많은 인격체가 손실됐다. 행성에 배정됐던 경영자 스라빔과 파도기 스라빔 중에서는, 거의 반{半} 정도가 **루시퍼**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와 **달리개스차**에게 합류했다. 1차 중도 피조물 중에서 40,119명이 **캘리게스차**와 손잡았지만, 이 존재들 가운데 나머지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충실한 채 남아있었다.

배반한 **왕자**는, 불충한 중도 피조물, 그리고 반역한 다른 인격체 무리들을 집합시켰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조직했으며, 반면에 **반**은 충성된 중도자들과 신실한 다른 무리들을 모았고, 행성 참모진 및 고립된 다른 천상의 인격체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투를 개시했다.

이런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충성된 존재들은 **달라마시아**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마련된, 벽이 없고 거의 보호되지 못한 촌락에 거주했지만, 깨어서 항상 파수를 보는 충성된 중도 피조물이 그들의 거주지를 주야로 보호했고, 그들은 대단히 귀중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역이 발발하게 되자, 충성된 체루빔과 스라빔이 세 명의 신실한 중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나무 관리를 맡았으며, 오직 40명의 충성된 참모진 및 그들과 연합된 변경된 필사자들만, 이 에너지 식물의 열매와 잎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 중에는 참모진의 동역자인 변경된 **안돈족속**이 56명 있었고, 불충한 참모진의 **안돈족속** 수행원 중에서도 열여섯 명은, 주인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

Not until then did Van and his loyal associates receive vindication and release from their prolonged anxiety and intolerable suspense.

3. THE SEVEN CRUCIAL YEARS

67:3.1 (756.2) The outbreak of rebellion on Jerusalem, the capital of Satania, was broadcast by the Melchizedek council. The emergency Melchizedek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Jerusalem, and Gabriel volunteered to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reator Son, whose authority had been challenged. With this broadcast of the fact of rebellion in Satania the system was isolated, quarantined, from her sister systems. There was “war in heaven,” the headquarters of Satania, and it spread to every planet in the local system.

67:3.2 (756.3) On Urantia forty members of the corporeal staff of one hundred (including Van) refused to join the insurrection. Many of the staff's human assistants (modified and otherwise) were also brave and noble defenders of Michael and his universe government. There was a terrible loss of personalities among seraphim and cherubim. Almost one half of the administrator and transition seraphim assigned to the planet joined their leader and Daligastia in support of the cause of Lucifer. Forty thousand one hundred and nineteen of the primary midway creatures joined hands with Caligastia, but the remainder of these beings remained true to their trust.

67:3.3 (756.4) The traitorous Prince marshaled the disloyal midway creatures and other groups of rebel personalities and organized them to execute his bidding, while Van assembled the loyal midwayers and other faithful groups and began the great battle for the salvation of the planetary staff and other marooned celestial personalities.

67:3.4 (756.5) During the times of this struggle the loyalists dwelt in an unwallied and poorly protected settlement a few miles to the east of Dalamatia, but their dwellings were guarded day and night by the alert and ever-watchful loyal midway creatures, and they had possession of the priceless tree of life.

67:3.5 (756.6) Upon the outbreak of rebellion, loyal cherubim and seraphim, with the aid of three faithful midwayers, assumed the custody of the tree of life and permitted only the forty loyalists of the staff and their associated modified mortals to partake of the fruit and leaves of this energy plant. There were fifty-six of these modified Andonite associates of the staff, sixteen of the Andonite attendants of the disloyal staff refusing to go into rebellion with their masters.

캘리개스차가 반역을 일으킨 이래 혹독한 7년 내내, **반**은, 사람, 중도자, 및 천사들로 구성된 자신의 충성된 군대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우주 정부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태도의 충성심을 **반**이 견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확고함은, 명확한 사고{思考}, 현명한 논법{論法}, 논리적 판단, 진실된 의도, 사심 없는 목적, 지성적 충성심, 체험의 회상{回想}, 단련된 성품, 그리고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인격을 봉헌하는 태도의 산물이었다.

기다리면서 보낸 이 7년의 세월은, 마음을 추스리고 혼을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우주 직무에서 그런 위기는, 영적 선택의 한 요소로서 정신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 훈련, 및 체험은, 진화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이 내리는, 생사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결정에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놀라운 행동은, 온전히 헌신한 피조물의 의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하는 영{靈}이, 인간 인격의 결정하고_결심하는 능력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반**의 변경된 인간 동료인 **아마돈**의 체험에서 일어났다.

아마돈은 **루시퍼** 반역에서 걸출한 인간 영웅이다. **안돈**과 **원타**의 후손인 이 남자는, **왕자**의 참모진에게 생명 원형질을 기부했던 100명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사건이 있는 후로 줄곧, 동역자 및 인간 보좌관으로서 **반**에게 배속돼 왔었다. **아마돈**은 길고 피로운 투쟁기간에, 자신의 우두머리와의 한 편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7년의 투쟁기간 내내, **아마돈**과 그의 충성스런 동역자들이, 명석한 **캘리개스차**의 온갖 현혹하는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동안, 진화하는 인종 출신인 이 사람이, **달리개스차**의 꾀변에 동요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감격스러운 광경이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우주 직무에서 광범위하게 체험한 **캘리개스차**는 타락했다--즉 죄를 지었다. 최소의 지성을 지녔고 우주 체험은 전혀 없는 **아마돈**은, 우주의 봉사와, 동역자에 대한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했다. **반**은 지적{知的} 판단과 영적 통찰력을 멋지게 효과적으로 배합하면서, 정신과 영 양쪽 다 활용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 인격 실현의 체험 수준을 성취했다. 정신과 영은, 온전히 일치하게 되면, 초인적 가치들, 심지어 모른시아 실체까지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비극적인 날들 동안, 소란스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인격체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에야, **유란시아**에서 권세를 몰수하기 위해, **에덴시아**의 **지고자**가 비상

67:3.6 (756.7) Throughout the seven crucial year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Van was wholly devoted to the work of ministry to his loyal army of men, midwayers, and angels. The spiritual insight and moral steadfastness which enabled Van to maintain such an unshakable attitude of loyalty to the universe government was the product of clear thinking, wise reasoning, logical judgment, sincere motivation, unselfish purpose, intelligent loyalty, experiential memory, disciplined character, and the unquestioning dedication of his personality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Paradise.

67:3.7 (756.8) This seven years of waiting was a time of heart searching and soul discipline. Such crises in the affairs of a universe demonstrate the tremendous influence of mind as a factor in spiritual choosing.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are factors in most of the vital decisions of all evolutionary moral creatures. But it is entirely possible for the indwelling spirit to make direct contact with the decision-determining powers of the human personality so as to empower the fully consecrated will of the creature to perform amazing acts of loyal devotion to the will and the way of the Father in Paradise. And this is just what occurred in the experience of Amadon, the modified human associate of Van.

67:3.8 (757.1) Amadon is the outstanding human hero of the Lucifer rebellion. This male descendant of Andon and Fonta was one of the one hundred who contributed life plasm to the Prince's staff, and ever since that event he had been attached to Van as his associate and human assistant. Amadon elected to stand with his chief throughout the long and trying struggle. And it was an inspiring sight to behold this child of the evolutionary races standing unmoved by the sophistries of Daligastia while throughout the seven-year struggle he and his loyal associates resisted with unyielding fortitude all of the deceptive teachings of the brilliant Caligastia.

67:3.9 (757.2) Caligastia, with a maximum of intelligence and a vast experience in universe affairs, went astray — embraced sin. Amadon, with a minimum of intelligence and utterly devoid of universe experience, remained steadfast in the service of the universe and in loyalty to his associate. Van utilized both mind and spirit in a magnificent and effective combination of intellectual determination and spiritual insight, thereby achieving an experiential level of personality realization of the highest attainable order. Mind and spirit, when fully united, are potential for the creation of superhuman values, even morontia realities.

67:3.10 (757.3) There is no end to the recital of the stirring events of these tragic days. But at last the final decision of the last personality was made, and then, but only then, did a Most High of Edentia

대책 **멜기세덱**들과 함께 도착했다. **예루셈**에 있는 **캘리개스차**의 파노라마 통치 기록이 삭제됐고, 행성의 재건을 위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됐다.

arrive with the emergency Melchizedeks to seize authority on Urantia. The Caligastia panoramic reign-records on Jerusalem were obliterated, and the probationary era of planetary rehabilitation was inaugurated.

4. 반역 이후의 캘리개스차 1백 인

마지막 출석을 점검했을 때,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전환 요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렬돼 있었다: **반**과 그의 조정 법정 전체는 충성된 상태를 견지했다. 양식 담당 협의회 중에서 **앙**과 세 명의 요원이 살아남았다. 동물을 이용한 축산 담당 부서는 모두 반역에 가담했고, 동물을 정복하도록 충고하는 자들 전원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담당 교수진 중에서 다섯 명과 **헛**은 구원됐다.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놏**은 **캘리개스차**에게 가담했다. 종교를 계시하는 전체 학부와 **합**은, **반**과 그의 훌륭한 일행들과 함께 충성된 존재로 남았다. 건강 담당 부서 전체와 **럿**은 멸망했다. 예술 및 과학 담당 협의회 전체가 충성된 상태로 남았지만, 부족 정부 담당 위원회 전체와 **틔**은 타락했다. 그리하여 100명 중에서 40명이 구제됐고, 나중에 **예루셈**으로 옮겨갔으며, 거기서 **낙원**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했다.

행성 참모진 가운데 반역에 가담한 60명은 **놏**을 지도자로 뽑았다. 그들은 반역한 **왕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했지만, 체계의 생명 회로가 주는 영양을 뺏겼음을 곧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필사 존재 상태로 퇴보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적 존재였지만, 동시에 물질이고 필사자였다. 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달리개스차**는 즉시 성교(性交)로 자식을 낳도록 명령했는데, 원래의 60명과 변경된 44명의 **안돈족속** 동역자가, 죽음으로 곧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달라마시아**가 와해된 후에, 불충한 참모진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의 후손은 **놏족속**으로, 그들이 거주하던 곳은 “**놏**의 땅”으로, 오랫동안 알려졌다.

반역으로 인해 궁지에 빠지고 곧 이 세상의 아들딸과 짝짓게 된, 특출난 이 초인적 남녀 현존은, 신(神)들이 필사자들과 짝지으려고 내려왔다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쉽게 기원시켰다. 그리하여 신화적(神話的) 성격을 갖는 수많은 전설이 생겼지만, 반란 이후 시대의 사실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나중에, 조상이 **놏족속** 및 그 후손과 이렇게 접촉한 다양한 민족의 민간 설화와 전승에 자리 잡게 됐다.

4. THE CALIGASTIA ONE HUNDRED AFTER REBELLION

67:4.1 (757.4) When the final roll was called,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found to have aligned themselves as follows: Van and his entire court of co-ordination had remained loyal. Ang and three members of the food council had survived. The board of animal husbandry were all swept into rebellion as were all of the animal-conquest advisers. Fad and five members of the educational faculty were saved. Nod and all of the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joined Caligastia. Hap and the entire college of revealed religion remained loyal with Van and his noble band. Lut and the whole board of health were lost. The council of art and science remained loyal in its entirety, but Tut and the commission on tribal government all went astray. Thus were forty out of the one hundred saved, later to be transferred to Jerusalem, where they resumed their Paradise journey.

67:4.2 (757.5) The sixty members of the planetary staff who went into rebellion chose Nod as their leader. They worked wholeheartedly for the rebel Prince but soon discovered that they were deprived of the sustenance of the system life circuits. They awakened to the fact that they had been degraded to the status of mortal beings. They were indeed superhuman but, at the same time, material and mortal. In an effort to increase their numbers, Daligastia ordered immediate resort to sexual reproduction, knowing full well that the original sixty and their forty-four modified Andonite associates were doomed to suffer extinction by death, sooner or later. After the fall of Dalamatia the disloyal staff migrated to the north and the east. Their descendants were long known as the Nodites, and their dwelling place as “the land of Nod.”

67:4.3 (758.1) The presence of these extraordinary supermen and superwomen, stranded by rebellion and presently mating with the sons and daughters of earth, easily gave origin to those traditional stories of the gods coming down to mate with mortals. And thus originated the thousand and one legends of a mythical nature, but founded on the facts of the postrebellion days, which later found a place in the folk tales and traditions of the various peoples whose ancestors had participated in these contacts with the Nodites and their descendants.

영적 양식을 뺏긴 채, 반역에 가담한 참모진은 결국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인간 종족들의 우상 숭배 대부분은, **캘리개스차** 시대에 고귀하게 숭앙받던 이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려는 열망에서 발생했다.

100명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고 조울사**와 분리됐었다.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이 도착하자마자, (**반**을 제외한) 충성된 인격체들은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기다리던 **조울사**와 다시 연합했다. 우리는 반역에 가담했던 참모진 60명의 운명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조울사**는 여전히 **예루셈**에 머물고 있다. **루시퍼**의 반역 전체가 최종적으로 판결 받고, 모든 가담자의 운명이 정해질 때까지, 사태는 틀림없이 지금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천사와 중도자 같은 그런 존재들은, **캘리개스차** 및 **달리개스차** 처럼 뛰어나고 신뢰받는 통치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즉 배반하는 죄를 범한다는--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죄에 빠진 존재들은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는데-- 믿었던 지도자들에게 속은 자기 상관{上官}들에게 잘못 이끌렸다. 원시적_성향을 가진 진화하는 필사자의 지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웠다.

예루셈 및 잘못 인도된 여러 행성에서, **루시퍼** 반역의 희생자였던 모든 인간과 초인적 존재들 대다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태고 항존자**들이 아주 최근에 시작한, **사타니아** 반역의 용건들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완결 지을 때, 진지한 참회자{懺悔者} 전원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고, 우주 봉사의 어떤 국면으로 복직될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믿는다.

5. 반역의 직접 결과

반역의 선동이 있는 후에, 큰 혼란이 거의 50년 동안 **달라마시아**와 인근에 퍼져 있었다. 전 세계에 대한 완전하고 급진적인 재조직이 시도됐고; 문화를 증진하고 인종을 개선하는 방침으로서, 혁명이 진화를 대체했다. **달라마시아** 내부와 주변에 있던, 부분적으로 훈련된 우수한 체류자들 가운데서, 문화적 상태에 갑작스런 진보가 나타났으나; 새롭고 급진적인 이 방법이, 외곽에 있는 민족들에게 시도됐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인종적 대혼란이 즉시 일어났다. 당시의 어설픈 진화된 원시인들은, 재빨리 자유를 방종{放縱}으로 해석했다.

반역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선동에 가담한 참모진 전체는, 반미개인{半未開人}에게 시기상조로 가르쳐졌던 자유주의의 결과로, 사방

67:4.4 (758.2) The staff rebels, deprived of spiritual sustenance, eventually died a natural death. And much of the subsequent idolatry of the human races grew out of the desire to perpetuate the memory of these highly honored beings of the days of Caligastia.

67:4.5 (758.3) When the staff of one hundred came to Urantia, they were temporarily detached from their Thought Adjusters. Immediately upon the arri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he loyal personalities (except Van) were returned to Jerusem and were reunited with their waiting Adjusters. We know not the fate of the sixty staff rebels; their Adjusters still tarry on Jerusem. Matters will undoubtedly rest as they now are until the entire Lucifer rebellion is finally adjudicated and the fate of all participants decreed.

67:4.6 (758.4) It was very difficult for such beings as angels and midwayers to conceive of brilliant and trusted rulers like Caligastia and Daligastia going astray — committing traitorous sin. Those beings who fell into sin — they did not deliberately or premeditatedly enter upon rebellion — were misled by their superiors, deceived by their trusted leaders. It was likewise easy to win the support of the primitive-minded evolutionary mortals.

67:4.7 (758.5) The vast majority of all human and superhuman beings who were victims of the Lucifer rebellion on Jerusem and the various misled planets have long since heartily repented of their folly; and we truly believe that all such sincere penitents will in some manner be rehabilitated and restored to some phase of universe service when the Ancients of Days finally complete the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Satania rebellion, which they have so recently begun.

5. IMMEDIATE RESULTS OF REBELLION

67:5.1 (758.6) Great confusion reigned in Dalamatia and thereabout for almost fifty years after the instigation of rebellion. The complete and radical reorganization of the whole world was attempted; revolution displaced evolution as the policy of cultural advancement and racial improvement. Among the superior and partially trained sojourners in and near Dalamatia there appeared a sudden advancement in cultural status, but when these new and radical methods were attempted on the outlying peoples, indescribable confusion and racial pandemonium was the immediate result. Liberty was quickly translated into license by the half-evolved primitive men of those days.

67:5.2 (758.7) Very soon after the rebellion the entire staff of sedition were engaged in energetic defense of the city against the hordes of semisavages who besieged its walls as a result of

의 벽으로 몰려드는 그들 무리에 대항해서, 그 도시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본부가 남부의 파도 밑으로 가라앉기 수 년 전에, **달라마시아**의 시골 지역에 있던, 오도(誤導)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부족들이, 화려한 그 도시에 반야만적(半野蠻的) 급습을 감행해서, 탈퇴한 참모진 및 그 동역자들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개인의 해방과 집단적 자유라는 관념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건설하고자 했던 **캘리개스차**의 책략은, 신속히 거의 완전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사회는 과거의 생물학적 수준으로 재빨리 후퇴했고, 이 대격변이 세계를 더욱 심각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으므로, 발전하려는 투쟁은, **캘리개스차** 체제가 시작될 때 있던 자리보다 그다지 앞서지 않은 데서 모두 다시 시작됐다.

반역이 있는 후 162년이 지났을 때, 해일(海溢)이 **달라마시아**를 완전히 뒤덮었고, 행성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으며, 화려한 시대의 고귀한 문화에 속하는 거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다.

첫 세계 수도(首都)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을 때, **유란시아**에서 가장 낮은 유형인 **상익** 인종만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이 배신자들은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가짜 신(神)인 **녹**에게 바친 사당(祠堂)으로 이미 바뀌버렸다.

6. 반--흔들리지 않는 자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일찍부터 **인도** 서부 고지대로 철수했고, 거기서 혼란에 빠진 낮은 지대 종족들의 공격을 피했으며, **상익** 부족들이 태어나던 시대 직전에 그들의 초기 **바도난족속** 선조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한때 모두 무의식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그 은거지로부터 세계를 부흥시킬 계획을 세웠다.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인간 직무의 경영을 네 명씩으로 구성된 10개의 위원회에 맡겼는데, 그 집단들은 **왕자**의 통치 체제와 동일했다. 거주하고 있던 선임 **생명 운반자**들이, 40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임시로 통솔했고, 대기 상태에 있던 7년 내내 활약했다. 충성된 참모진 39명이 **예루셈**으로 돌아간 후에는, **아마돈족속**으로 구성된 비슷한 집단들이 이 책임을 맡았다.

이 **아마돈족속**은 **아마돈**이 소속된 144명의 충성된 **아마돈족속** 무리에서 유래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집단에는 남자 39명과 여자 105명이 포함됐다. 이 숫자 중에서 56명은 불멸(不滅)의 신분에 속했고, 그들은 모두 (**아마**

the doctrines of liberty which had been prematurely taught them. And years before the beautiful headquarters went down beneath the southern waves, the misled and mistaught tribes of the Dalamatia hinterland had already swept down in semisavage assault on the splendid city, driving the secession staff and their associates northward.

67:5.3 (759.1) The Caligastia scheme for the immediat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of individual freedom and group liberties, proved a swift and more or less complete failure. Society quickly sank back to its old biologic level, and the forward struggle began all over, starting not very far in advance of where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aligastia regime, this upheaval having left the world in confusion worse confounded.

67:5.4 (759.2)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fter the rebellion a tidal wave swept up over Dalamatia, and the planetary headquarters sank beneath the waters of the sea, and this land did not again emerge until almost every vestige of the noble culture of those splendid ages had been obliterated.

67:5.5 (759.3) When the first capital of the world was engulfed, it harbored only the lowest types of the Sangik races of Urantia, renegades who had already converted the Father's temple into a shrine dedicated to Nog, the false god of light and fire.

6. VAN — THE STEADFAST

67:6.1 (759.4) The followers of Van early withdrew to the highlands west of India, where they were exempt from attacks by the confused races of the lowlands, and from which place of retirement they planned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world as their early Badonite predecessors had once all unwittingly worked for the welfare of mankind just before the days of the birth of the Sangik tribes.

67:6.2 (759.5) Before the arri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Van placed the administration of human affairs in the hands of ten commissions of four each, groups identical with those of the Prince's regime. The senior resident Life Carriers assumed temporary leadership of this council of forty, which functioned throughout the seven years of waiting. Similar groups of Amadonites assumed these responsibilities when the thirty-nine loyal staff members returned to Jerusalem.

67:6.3 (759.6) These Amadonites were derived from the group of 144 loyal Andonites to which Amadon belonged, and who have become known by his name. This group comprised thirty-nine men and one hundred and five women. Fifty-six of this

돈을 제외한) 충성된 참모진 요원과 함께 옮겨졌다. 고귀한 이 무리 가운데 나머지는 그들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반과 아마돈의 지도 아래 이 세상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반란 이후 시절의 긴 암흑기 내내 번식하여, 세계를 위한 통솔력을 계속 제공한 생물학적 효소였다.

반은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고, 행성에서 활동하는 초인적 인격체들 전체의 명예{名譽} 우두머리로서 머물렀다. 반과 아마돈은 15만 년 이상, 멜기세덱들이 베푸는 특화된 생명체 사역과 함께, 생명나무의 기법으로 목숨을 유지했다.

수석 성과 통치자인 노라티아덱의 지고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서, 열두 명의 멜기세덱 행성 관재인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유란시아의 직무를 오랫동안 경영해 왔다. 멜기세덱 관재인들과 연합된 자문 협의회는: 타락한 왕자의 충성된 조력자들 중에서 한 명,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 두 명, 견습생 신분으로 훈련받는 삼위일체처럼 된 아들 한 명, 자원봉사자인 교사{教師} 아들 한 명, (정기적으로) 아바론의 찬란한 저녁 별 한 명, 스라빔과 체루빔의 우두머리들, 두 이웃 행성에서 온 자문가들, 하위 천사 생명체의 지휘 사령관, 그리고 중도{中道} 피조물의 우두머리 지휘자인 반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경영됐다. 용감하고 충성스런 반이, 유란시아의 직무를 그토록 오랫동안 경영한 행성 관재인 협의회에서 한 자리에 배치됐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 열두 명은 훌륭하게 일했다. 그들은 남아있는 문명을 보존했고, 반은 그들의 행성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반역이 일어난 후 1,000년이 지나기 전에, 세계에 널리 흩어진 350개 이상의 진보된 무리를 유지했다. 이 문명 전초기지들은 주로, 충성된 안돈족 속으로 구성돼 있었고, 상의 인종들, 특히 청인종이 약간 섞여 있었으며, 늦족속도 섞여 있었다.

반역으로 인한 심각한 퇴보에도, 이 세상에는 생물학적 전망이 훌륭한 많은 종족이 있었다. 멜기세덱 관재인들의 감독 하에, 반과 아마돈은 인간 종족의 자연스런 진화를 계속 촉진시켰는데, 물질 아들과 딸이 유란시아로 파견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의 육체적 진화를 진척시켰다.

반과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도래한 직후까지 지구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그들은 예루셈으로 옮겨졌고, 반은 거기에서 기다리던

number were of immortality status, and all (except Amadon) were translated along with the loyal members of the staff. The remainder of this noble band continued on earth to the end of their mortal days under the leadership of Van and Amadon. They were the biologic leaven which multiplied and continued to furnish leadership for the world down through the long dark ages of the postrebellion era.

67:6.4 (759.7) Van was left on Urantia until the time of Adam, remaining as titular head of all superhuman personalities functioning on the planet. He and Amadon were sustained by the technique of the tree of life in conjunction with the specialized life ministry of the Melchizedeks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67:6.5 (759.8) The affairs of Urantia were for a long time administered by a council of planetary receivers, twelve Melchizedeks, confirmed by the mandate of the senior constellation ruler, the Most High Father of Norlatiadek. Associated with the Melchizedek receivers was an advisory council consisting of: one of the loyal aids of the fallen Prince, the two resident Life Carriers, a Trinitized Son in apprenticeship training, a volunteer Teacher Son, a Brilliant Evening Star of Avalon (periodically), the chiefs of seraphim and cherubim, advisers from two neighboring planets, the director general of subordinate angelic life, and Van,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us was Urantia governed and administered until the arrival of Adam. It is not strange that the courageous and loyal Van was assigned a place on the council of planetary receivers which for so long administered the affairs of Urantia.

67:6.6 (760.1)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did heroic work. They preserved the remnants of civilization, and their planetary policies were faithfully executed by Van. Within one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he had more than three hundred and fifty advanced groups scattered abroad in the world. These outposts of civilization consisted largely of the descendants of the loyal Andonites slightly admixed with the Sangik races, particularly the blue men, and with the Nodites.

67:6.7 (760.2) Notwithstanding the terrible setback of rebellion there were many good strains of biologic promise on earth.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Van and Amadon continued the work of fostering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human race, carrying forward the physical evolution of man until it reached that culminating attainment which warranted the dispatch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to Urantia.

67:6.8 (760.3) Van and Amadon remained on earth until shortly after the arrival of Adam and Eve. Some years thereafter they were translated to

조을사와 재결합했다. 반은 지금, 모이고 있는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의 계시되지 않은 운명과, **낙원** 완전성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출발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유란시아**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

루시퍼가 **유란시아**에서 **캘리개스차**를 지지한 후에, 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항소했을 때, 반이 주장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즉각적인 결정을, **성좌 아버지**들이 보냈던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던 도중에, 행성의 통신 회로(回路)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오직 최근에 이르러서야, **유란시아**의 격리 이후부터 줄곧 고립돼 있는 교대(交代) 에너지 전달자의 소유물 속에, 이 실제 판결이 들어 있음이 발견됐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조사 결과로 이뤄진 이런 발견이 없었다면, 이 결정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성좌 회로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행성 간 연락의 이런 명백한 사고(事故)는, 에너지 전달자들이 정보를 받고 보낼 수는 있지만, 연락을 직접 주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타니아의 법률상 기록에서 반의 절차상 신분은, **에덴시아 아버지**들이 내렸던 이 판결이 **에루셈**에 기록될 때까지는, 실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

7. 죄의 간접 영향

피조물이 빛을 고의로 끊임없이 거부함으로 인해 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심적) 결과는, 당연히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며, 오직 **신격**과, 그리고 인격자인 피조물과 관련될 뿐이다. 그런 식으로 혼을 파괴하는 죄악의 수확은, 의지를 지닌, 죄악을 범하는 피조물이 내적으로 거둬들인다.

그러나 죄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죄를 내포하는 비인격적 (원심적) 결과는, 당연히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며, 그런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다.

행성 경영체제가 붕괴된 후 5만 년이 지나자, 이 세상 직무는 너무나 질서 문란하고 퇴락(頹落)해서, 35만 년 전에 **캘리개스차**가 도착한 시대에 있었던, 일반 진화 상태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이뤄졌지만;다른 방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초가 유실(遺失)된 상태였다.

죄는 그 영향에서 절단코 국지적일 수 없다. 우주의 경영 구역들은 유기적이며;한 인격체의 치지는 반드시 전체와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게 돼있다. 죄는, 실체에 대한 인격자의 태도이므로, 우주 가치의 어느 관련된 수준에서든지, 그 안에 내재

Jerusalem, where Van was reunited with his waiting Adjuster. Van now serves in behalf of Urantia while awaiting the order to go forward on the long, long trail to Paradise perfection and the unrevealed destiny of the assembling Corps of Mortal Finality.

67:6.9 (760.4) It should be recorded that, when Van appeal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fter Lucifer had sustained Caligastia on Urantia, the Constellation Fathers dispatched an immediate decision sustaining Van on every point of his contention. This verdict failed to reach him because the planetary circuits of communication were severed while it was in transit. Only recently was this actual ruling discovered lodged in the possession of a relay energy transmitter where it had been marooned ever since the isolation of Urantia. Without this discovery, made as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Urantia midwayers, the release of this decision would have awaited the restoration of Urantia to the constellation circuits. And this apparent accident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was possible because energy transmitters can receive and transmit intelligence, but they cannot initiate communication.

67:6.10 (760.5) The technical status of Van on the legal records of Satania was not actually and finally settled until this ruling of the Edentia Fathers was recorded on Jerusalem.

7. REMOTE REPERCUSSIONS OF SIN

67:7.1 (760.6) The personal (centripetal) consequences of the creature's willful and persistent rejection of light are both inevitable and individual and are of concern only to Deity and to that personal creature. Such a soul-destroying harvest of iniquity is the inner reaping of the iniquitous will creature.

67:7.2 (761.1) But not so with the external repercussions of sin: The impersonal (centrifugal) consequences of embraced sin are both inevitable and collective, being of concern to every creature functioning within the affect-range of such events.

67:7.3 (761.2) By fifty thousand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earthly affairs were so disorganized and retarded that the human race had gained very little over the general evolutionary status existing at the time of Caligastia's arrival thre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previously. In certain respects progress had been made; in other directions much ground had been lost.

67:7.4 (761.3) Sin is never purely local in its effects. The administrative sectors of the universes are organismal; the plight of one personality must to a certain extent be shared by all. Sin, being an attitude of the person toward reality, is destined to

된 부정적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 악한 행동, 또는 죄로 가득한 계획으로 인한 전체 결과는, 오직 실제로 실행하는 수준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우주 법칙을 어기는 것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적 체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영역에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오직 죄가 그 존재 전체의 태도일 때, 즉 정신이 선택하고 혼이 의도하는 것을 죄가 대표할 때에만, 죄가 인격 생존에 파멸적 영향을 초래한다.

악과 죄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때로는 우주 실체의 특정 수준에서 영적 진보를 늦출 수도 있지만, 어떤 존재가 지은 죄든지, 인격을 생존시킬 수 있는 다른 존재의 신성한 권한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결코 막을 수 없다. 영원한 생존은, 오직 각 개인 자신의 정신이 결정하고 혼이 선택함으로써만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죄는 생물학상의 진화를 거의 지체시키지 못했지만, **아담**의 유산에서 생기는 풍부한 혜택을 인간 종족들로부터 빼앗는 작용을 했다. 죄는, 지적 발전, 도덕적 성장, 사회적 진보, 및 대규모의 영적 달성을 크게 저해한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신성한 뜻을 진심으로 행하기를 바라든지, 죄는 그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캘리개스차는 반역했고, **아담**과 **이브**는 태만했지만, 그 후에 **유란시아**에서 태어나는 어떤 필사자도, 이런 큰 실수들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 고통 받지는 않았다. **캘리개스차**의 반역 이후에 **유란시아**에 태어난 필사자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혼이 받을 장차의 행복은 영원토록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인격자가 다른 인격자의 죄 때문에 심각한 영적 손실을 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죄의 영향이, 경영적, 지적, 및 사회적 영역에 광범하게 미침에도, 죄가 가져오는 도덕적 죄책감 또는 영적 결과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다.

우리는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나도록 왜 용납하는지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국지적인 침해가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와 같이, 그 침해가 주는 유익한 결실과정을 반드시 식별할 수 있다.

8. 반역 때 나타난 인간 영웅

사타니아에 있는 다양한 세계에서, 용감한 많은 존재가 **루시퍼** 반역에 저항했지만; **살빙톤**의 기록은, 엄청나게 밀려오는 선동의 물결을 **아마돈**이 멋지게 물리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에게 변함없이 헌신했다는 점에서--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충성에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함께 지켜나갔다는 점에서,

exhibit its inherent negativistic harvest upon any and all related levels of universe values. But the full consequences of erroneous thinking, evil-doing, or sinful planning are experienced only on the level of actual performance. The transgression of universe law may be fatal in the physical realm without seriously involving the mind or impairing the spiritual experience. Sin is fraught with fatal consequences to personality survival only when it is the attitude of the whole being, when it stands for the choosing of the mind and the willing of the soul.

67:7.5 (761.4) Evil and sin visit their consequences in material and social realms and may sometimes even retard spiritual progress on certain levels of universe reality, but never does the sin of any being rob another of the realization of the divine right of personality survival. Eternal survival can be jeopardized only by the decisions of the mind and the choice of the soul of the individual himself.

67:7.6 (761.5) Sin on Urantia did very little to delay biologic evolution, but it did operate to deprive the mortal races of the full benefit of the Adamic inheritance. Sin enormously retards intellectual development, moral growth, social progress, and mass spiritual attainment. But it does not prevent the highest spiritual achievement by any individual who chooses to know God and sincerely do his divine will.

67:7.7 (761.6) Caligastia rebelled, Adam and Eve did default, but no mortal subsequently born on Urantia has suffered in his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because of these blunders. Every mortal born on Urantia since Caligastia's rebellion has been in some manner time-penalized, but the future welfare of such souls has never been in the least eternity-jeopardized. No person is ever made to suffer vital spiritual deprivation because of the sin of another. Sin is wholly personal as to moral guilt or spiritual consequences, notwithstanding its far-flung repercussions in administrative, intellectual, and social domains.

67:7.8 (761.7) While we cannot fathom the wisdom that permits such catastrophes, we can always discern the beneficial outworking of these local disturbances as they are reflected out upon the universe at large.

8. THE HUMAN HERO OF THE REBELLION

67:8.1 (761.8) The Lucifer rebellion was withstood by many courageous beings on the various worlds of Satania; but the records of Salvington portray Amadon as the outstanding character of the entire system in his glorious rejection of the flood tides of sedition and in his unswerving devotion to Van — they stood together unmoved in their loyalty to the supremacy of the invisible Father and his Son

전체 체계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로 **아마돈**을 꼽았다.

이런 중대한 진행사항이 일어날 때, 나는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었고, **살빙톤**의 방송물을 속독하면서 체험했던 유쾌한 기분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데, **안돈** 종족에서 실험 중인 원래 혈통에서 태어난, 한때 반(半)야만인이었던 이 사람이, 날마다 놀라울 정도로 견실했고, 탁월하게 헌신적이며, 더없이 훌륭하게 충성했다는 내용이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타니아**의 반역과 관련하여, **에덴시아**에서 **살빙톤**을 거쳐 심지어 **우버사**까지, 모든 하위 천상{天上} 생명체의 첫 질문은 항상, “**유란시아**의 **아마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루시퍼의 반역이 지역 체계 및 그 타락한 세계들을 방해했다면, 이 **아들**과 잘못 인도된 동역자들의 실패가, **노라티아덱** 성좌의 진보를 일시적으로 꺾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아마돈**의 불충한 상관들이 가한 그토록 극심하고 불리한 압력에 직면해서, 더 높은 우주 관리 및 경영 개념을 지지해서 확고부동하게 버틴, 이 자연인{自然人} 한 사람과 그의 동지 143명의 굳게 결심한 무리가 보여줬던, 용기를 북돋우는 업적을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한, 그 소식의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희는 안심해도 좋은데, 이것은 **네바돈** 우주와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루시퍼** 반역으로 인한 모든 악과 불행의 총계가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낙원**에 있는 **필사자 완성취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상승하면서 진보하는 평범한 육체를 가진 필사자로부터--즉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아마돈** 같은 바로 그런 필사자로부터-- 이런 광대한 무리의 불가사의한 미래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지혜를 최고로 장엄하게 빛내고 있으며, 아름답게 감동을 주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Michael.

67:8.2 (762.1) At the time of these momentous transactions I was stationed on Edentia, and I am still conscious of the exhilaration I experienced as I perused the Salvington broadcasts which told from day to day of the unbelievable steadfastness, the transcendent devotion, and the exquisite loyalty of this onetime semisavage springing from the experimental and original stock of the Andonic race.

67:8.3 (762.2) From Edentia up through Salvington and even on to Uversa, for seven long years the first inquiry of all subordinate celestial life regarding the Satania rebellion, ever and always, was: "What of Amadon of Urantia, does he still stand unmoved?"

67:8.4 (762.3) If the Lucifer rebellion has handicapped the local system and its fallen worlds, if the loss of this Son and his misled associates has temporarily hampered the progres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then weigh the effect of the far-flung presentation of the inspiring performance of this one child of nature and his determined band of 143 comrades in standing steadfast for the higher concepts of univers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n the face of such tremendous and adverse pressure exerted by his disloyal superiors. And let me assure you, this has already done more good in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an can ever be outweighed by the sum total of all the evil and sorrow of the Lucifer rebellion.

67:8.5 (762.4) And all this is a beautifully touching and superbly magnificent illumination of the wisdom of the Father's universal plan for mobilizing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on Paradise and for recruiting this vast group of mysterious servants of the future largely from the common clay of the mortals of ascending progression — just such mortals as the impregnable Amadon.

67:8.6 (762.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68편. 문명의 태동

⇨ 067

유란시아 책

06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8편
문명의 태동

섹션

소개

1. 보호하기 위한 사회화
2. 사회 발전의 요인
3.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화에 미친 영향
4. 사회관행의 진화
5. 토지 이용 기법 --유지하는 기술
6. 문화의 진화

소개

이 글은, 동물 실존보다 거의 나을 것 없는 상태에서부터, 중간의 여러 시대를 거쳐서, 어설피기는 하지만 실제 문명이 인류의 고등 인종들 가운데서 진화한 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종족들이 겪은 길고 긴 전진하는 투쟁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문명은 종족이 획득하는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녀든지, 문화가 있는 환경에서 키워야 하고, 한편 이어지는 각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 문명의 우수한 --과학적, 철학적, 및 종교적-- 자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직접 계승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취는, 오직 사회 유산을 현명하게 보존함으로써만 유지된다.

달라마시아 선생들이 협동 체제의 사회적 진화를 개시했고, 인류는 30만 년 동안 집단으로 활동하는 관념 속에서 양육됐다. 누구보다도 청색인이 초기의 이런 사회 교훈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고, 홍색인은 다소 얻었으며, 흑색인이 전체 가운데 가장 적게 얻었다. 더 최근에는, 황인종과 백인종이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 발전을 나

PAPER 68

THE DAWN OF CIVILIZ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Protective Socialization
2. Factors in Social Progression
3. Socializing Influence of Ghost Fear
4. Evolution of the Mores
5. Land Techniques — Maintenance Arts
6. Evolution of Culture

INTRODUCTION

68:0.1 (763.1)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narrative of the long, long forward struggle of the human species from a status that was little better than an animal existence, through the intervening ages, and down to the later times when a real, though imperfect, civilization had evolved among the higher races of mankind.

68:0.2 (763.2) Civilization is a racial acquirement; it is not biologically inherent; hence must all children be reared in an environment of culture, while each succeeding generation of youth must receive anew its education. The superior qualities of civilization — scientific, philosophic, and religious — are not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direct inheritance. These cultural achievements are preserved only by the enlightened conservation of social inheritance.

68:0.3 (763.3) Social evolution of the co-operative order was initiated by the Dalamatia teachers, and for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mankind was nurtured in the idea of group activities. The blue man most of all profited by these early social teachings, the red man to some extent, and the black man least of all. In more recent times the

타냈다.

1. 보호하기 위한 사회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했을 때 종종 서로 비슷해지기를 배우지만, 원시인에게는 형제처럼 느끼는 기분, 그리고 동료들과 사회적으로 접촉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초기 인종들은 “협력해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비참한 체험을 겪음으로써 배웠으며;**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관계를 즉시 실현하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연스런 형제다운 애정의 부족이다.

연합은 일찍부터 살아남기 위한 대가{代價}가 됐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갑작스런 습격을 받는다 해도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음을 표시하는 부족 표지{標識}를 간직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가인**의 시대에도,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어떤 표지를 갖지 않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문명은 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됐으며, 반면에 그 대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법적 요구에 복잡함으로써 지불된다.

원시 사회는 이처럼 필요를 서로 의존하고 연합함으로 증진된 안전에 기초를 뒀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고립을 두려워한 결과로, 그리고 마지못해 협동함으로, 오랜 세월의 반복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다.

원시 인간은, 독립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보다 집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함을 일찍부터 배웠다. 100명의 남자가 결합해 힘을 합쳐서 일하면 거대한 돌도 움직일 수 있으며; 잘 훈련된 다수의 평화 수호자는 흥분한 군중을 자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가 생겨났는데, 개인들을 단순히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협동하는 자들을 조직한 결과였다. 그러나 협동은 사람의 선천적 특징이 아니며; 사람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시간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그리고 영원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비하여 조심하기에, 협동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협동하기를 배운다.

일찍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원시 형태의 사회로 조직화했던 민족들은, 동료들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도전에서도 더 성공하게 됐으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증대됐고, 그리하여 문명은 여러 번 퇴보했음에도 **유란시아**에서 꾸준히 진보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실책을 저질렀어도 인간의 문명이 정지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연합함으로써 살아남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스트랄리아 원주민, **아프리카**의 **부시먼** 인종, 및 **피그미** 인종의 특징인 원시 사회 상황이 오

yellow race and the white race have presented the most advanced social development on Urantia.

1. PROTECTIVE SOCIALIZATION

68:1.1 (763.4) When brought closely together, men often learn to like one another, but primitive man was not naturally overflowing with the spirit of brotherly feeling and the desire for social contact with his fellows. Rather did the early races learn by sad experience that “in union there is strength”; and it is this lack of natural brotherly attraction that now stands in the way of immediat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on Urantia.

68:1.2 (763.5) Association early became the price of survival. The lone man was helpless unless he bore a tribal mark which testified that he belonged to a group which would certainly avenge any assault made upon him. Even in the days of Cain it was fatal to go abroad alone without some mark of group association. Civilization has become man's insurance against violent death, while the premiums are paid by submission to society's numerous law demands.

68:1.3 (763.6) Primitive society was thus founded on the reciprocity of necessity and on the enhanced safety of association. And human society has evolved in agelong cycles as a result of this isolation fear and by means of reluctant co-operation.

68:1.4 (763.7) Primitive human beings early learned that groups are vastly greater and stronger than the mere sum of their individual units. One hundred men united and working in unison can move a great stone; a score of well-trained guardians of the peace can restrain an angry mob. And so society was born, not of mere association of numbers, but rather as a result of the *organization* of intelligent co-operators. But co-operation is not a natural trait of man; he learns to co-operate first through fear and then later because he discovers it is most beneficial in meeting the difficulties of time and guarding against the supposed perils of eternity.

68:1.5 (764.1) The peoples who thus early organized themselves into a primitive society became more successful in their attacks on nature as well as in defense against their fellows; they possessed greater survival possibilities; hence has civilization steadily progressed on Urantia, notwithstanding its many setbacks. And it is only because of the enhancement of survival value in association that man's many blunders have thus far failed to stop or destroy human civilization.

68:1.6 (764.2) That contemporary cultural society is a rather recent phenomenon is well shown by the

늘날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현대의 문화 사회가 상당히 최근 현상임을 잘 보여준다. 진보가 늦은 이 민족들 가운데서, 초기의 집단적 호전성, 개인적 의심, 그리고 모든 원시 종족의 전반적인 특질이었던 매우 반사회적(反社會的)인 기타 특징들이 발견될 수 있다. 사회성이 없는 고대의 민족 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진보에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조직체 및 연합체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명됐다. 40내지 50마일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며, 진보가 늦고 의심 많은 이 반사회적 인종들은,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의 합동 교육과, 인종을 개량시키는 **아담**의 후예 무리들의 후기 활동이 없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증(例證)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현대의 외침은, 무식한 망상, 즉 한때의 허구적인 “황금기”를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황금기에 관한 전설의 유일한 근거는, **달라마시아**와 **에덴**이라는 역사적 사실뿐이다. 그러나 개량된 이 사회들은, 꿈같은 유토피아의 실현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2. 사회 발전의 요인

문명화된 사회는, **고립되기** 싫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찍부터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간 애정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 어느 원시 집단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태도는, 초기 부족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묘사한다. 그렇지만 문명세계에서 각 개인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리고 문명 자체가 경쟁과 투쟁이라는 모순 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문명은 심히 단조롭게 정제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분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지성의 수준은 문화의 발전 속도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주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각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위험한 요소를 줄여주도록 고안돼 있으며, 인생에서 고통을 줄여주고, 만족이라는 요소를 증대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빨리 진보해 왔다. 이처럼 전체 사회 집단은, 운명의 목표를 향해 --소멸하든지 생존하든지-- 그 목표가 자아_유지인가 아니면 자아_만족인가에 따라서, 서서히 나아간다. 자아_유지는 사회가 태동되게 하는 반면, 지나친 자아_만족은 문명을 파괴한다.

사회는, 자아_영속(永續), 자아_유지, 및 자아_만족에 관심을 갖지만, 인간의 자아_실현(實現)은 여러 문화 집단의 당면한 목표가 될 만하다.

present-day survival of such primitive social conditions as characterize the Australian natives and the Bushmen and Pygmies of Africa. Among these backward peoples may be observed something of the early group hostility, personal suspicion, and other highly antisocial traits which were so characteristic of all primitive races. These miserable remnants of the nonsocial peoples of ancient times bear eloquent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e natural individualistic tendency of man cannot successfully compete with the more potent and powerfu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of social progression. These backward and suspicious antisocial races that speak a different dialect every forty or fifty miles illustrate what a world you might now be living in but for the combined teaching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later labors of the Adamic group of racial uplifters.

68:1.7 (764.3) The modern phrase, “back to nature,” is a delusion of ignorance, a belief in the reality of the onetime fictitious “golden age.” The only basis for the legend of the golden age is the historic fact of Dalamatia and Eden. But these improved societies were far from the realization of utopian dreams.

2. FACTORS IN SOCIAL PROGRESSION

68:2.1 (764.4) Civilized society is the result of man's early efforts to overcome his dislike of *isolation*.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mutual affection, and the present turbulent state of certain primitive groups well illustrates what the early tribes came up through. But though the individuals of a civilization may collide with each other and struggle against one another, and though civilization itself may appear to be an inconsistent mass of striving and struggling, it does evidence earnest striving, not the deadly monotony of stagnation.

68:2.2 (764.5) While the level of intelligence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rate of cultural progress, society is essentially designed to lessen the risk element in the individual's mode of living, and it has progressed just as fast as it has succeeded in lessening pain and increasing the pleasure element in life. Thus does the whole social body push on slowly toward the goal of destiny — extinction or survival — depending on whether that goal is self-maintenance or self-gratification. Self-maintenance originates society, while excessive self-gratification destroys civilization.

68:2.3 (764.6) Society is concerned with self-perpetuation, self-maintenance, and self-gratification, but human self-realization is worthy of becoming the immediate goal of many cultural groups.

자연인에게 있는 집단 본능은, **유란시아**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사회 조직의 발전을 설명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비록 타고난 집단 성향이 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도, 사람의 사교성 대부분은 습득한 것이다. 인간의 초기 연합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두 요소는 식욕과 성욕이었으며; 사람은 이런 본능적 충동을 동물계와 공유한다. 인간을 억지로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둔 두 가지 다른 감정은 허영심과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다.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람이 양식을 얻으려고 투쟁한 기록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배고플 때에야 겨우 생각했으며*; 식량 저장은, 최초의 금욕, 즉 자아_훈련이었다.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식욕만이 상호 연합을 유일하게 자극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열망, 즉 다양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인류의 연합은 더 긴밀하게 됐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너무 커져서 불안정하다. 20세기 **서양** 문명은, 인간의 지나치게 배가{倍加}된 욕구, 열망, 및 사치의 지나친 부담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광범한 상호연합과 매우 복잡한 상호의존이라는 가장 위험한 국면의 긴장상태를 견디고 있다.

굶주림, 허영심, 및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사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지만, 성욕의 만족은 일시적이고 돌발적이었다. 원시인 남녀가 가정을 유지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오직 성적 충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초기의 가정은, 성욕의 만족감을 자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남성의 불만, 그리고 인간 여성의 헌신적 모성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성애는 모든 고등동물 암컷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 연약한 어린 아기가 태어남에 따라, 남자와 여성의 활동에서 일찍 분화{分化}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자는 정착된 주거지를 유지해야 했고, 거기서 땅을 일굴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여자가 사는 곳이 항상 가정으로 간주돼 왔다.

그리하여 여자는 일찍부터, 속히 사라지는 성욕의 열정 때문보다는 **음식의 필요성** 때문에, 진화하는 사회적 짜임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으며; 여자는 자아_유지에서 필수적 동반자가 됐다. 여자는, 양식 제공자, 짐 나르는 짐승, 난폭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심한 학대를 견디려 하는 동무, 그리고 바람직한 이 모든 특징 외에도, 성욕의 만족을 위해 항상_예비된 수단이였다.

문명사회에서 지속하는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것은, 가정에 그 뿌리를 둔다. 가정은 최초의 성공적 평화 집단이었는데,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68:2.4 (765.1) The herd instinct in natural man is hardly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social organization as now exists on Urantia. Though this innate gregarious propensity lies at the bottom of human society, much of man's sociability is an acquirement. Two great influences which contributed to the early association of human beings were food hunger and sex love; these instinctive urges man shares with the animal world. Two other emotions which drove human beings together and *held* them together were vanity and fear, more particularly ghost fear.

68:2.5 (765.2) History is but the record of man's agelong food struggle. *Primitive man only thought when he was hungry*; food saving was his first self-denial, self-discipline. With the growth of society, food hunger ceased to be the only incentive for mutual association. Numerous other sorts of hunger, the realization of various needs, all led to the closer association of mankind. But today society is top-heavy with the overgrowth of supposed human needs. Occidental civiliza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groans wearily under the tremendous overload of luxury and the inordinate multiplication of human desires and longings. Modern society is enduring the strain of one of its most dangerous phases of far-flung interassociation and highly complicated interdependence.

68:2.6 (765.3) Hunger, vanity, and ghost fear were continuous in their social pressure, but sex gratification was transient and spasmodic. The sex urge alone did not impel primitive men and women to assume the heavy burdens of home maintenance. The early home was founded upon the sex restlessness of the male when deprived of frequent gratification and upon that devoted mother love of the human female, which in measure she shares with the females of all the higher animals. The presence of a helpless baby determined the early differentiation of male and female activities; the woman had to maintain a settled residence where she could cultivate the soil. And from earliest times, where woman was has always been regarded as the home.

68:2.7 (765.4) Woman thus early became indispensable to the evolving social scheme, not so much because of the fleeting sex passion as in consequence of *food requirement*; she was an essential partner in self-maintenance. She was a food provider, a beast of burden, and a companion who would stand great abuse without violent resentment, and in addition to all of these desirable traits, she was an ever-present means of sex gratification.

68:2.8 (765.5) Almost everything of lasting value in civilization has its roots in the family. The family was the first successful peace group, the man and

대립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진화에서 결혼의 기능은, 개인의 행복 실현뿐만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대비책이었으며; 자아_유지와 자아_영속이 가정의 실제 목적이었다. 자아_만족은 어쩌다 일어나며, 성적{性的} 연합을 보장하는 미끼로서의 역할을 제외하면, 필수적이지 아니라 부수적이다. 자연은 살아남기를 갈망하지만, 결혼의 즐거움과 가정생활의 만족감을, 문명의 기술이 계속 증대시킨다.

자존심, 열정, 및 명예심을 덮을 만큼 허영심이 커지면, 우리는 이런 경향이 인간의 연합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함께 묶어 주는지도 분간할 수 있는데, 과시를 받아주는 청중 없이는 그런 감정이 아무 쓸모없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곧 그 자체와 다른 감정들을 결합시키며, 그 감정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충동한다. 이런 일련의 감정들이, 예술, 예식절차, 그리고 각종 형태의 운동경기과 시합이 태동되도록 일찍부터 원인을 제공했다.

허영심이 사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지만; 본게시가 주어질 때, 허영심 강한 세대의 사악한 경쟁심이, 고도로 전문화된 문명의 복잡한 구조 전체를 궁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침몰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쾌락의 욕구가 오래 전부터 배고픔의 욕구를 대체했으며; 자아_유지를 위한 합리적 사회 목표들은, 자아_만족을 위한 비열하고 위협적인 형태들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자아_유지는 사회를 세우지만; 억제되지 않는 자아_만족은 반드시 문명을 파괴시킨다.

3.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화에 미친 영향

원시적 욕구가 최초의 사회를 탄생시켰지만, 유령{幽靈}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회를 단결시켰고,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상을 실존에 덧붙였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생리적으로 기원된: 육체적 고통, 만족되지 못한 열망,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새롭고 극심한 종류의 공포였다.

인간 사회의 진화에서 가장 큰 단일 요소는 유령에 대한 꿈이었을 것이다. 대개의 꿈이 원시 정신을 크게 혼란시켰더라도, 유령에 대한 꿈은 초기의 사람을 실제로 위협했고, 미신적으로 꿈꾸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위험에 대항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손잡도록 만들었다. 유령에 대한 꿈은, 정신을 소유한 인간 유형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

woman learning how to adjust their antagonisms while at the same time teaching the pursuits of peace to their children.

68:2.9 (765.6) The function of marriage in evolution is the insurance of race survival, not merely the realization of personal happiness; self-maintenance and self-perpetuation are the real objects of the home. Self-gratification is incidental and not essential except as an incentive insuring sex association. Nature demands survival, but the arts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pleasures of marriage and the satisfactions of family life.

68:2.10 (765.7) If vanity be enlarged to cover pride, ambition, and honor, then we may discern not only how these propensitie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uman associations, but how they also hold men together, since such emotions are futile without an audience to parade before. Soon vanity associated with itself other emotions and impulses which required a social arena wherein they might exhibit and gratify themselves. This group of emotions gave origin to the early beginnings of all art, ceremonial, and all forms of sportive games and contests.

68:2.11 (766.1) Vanity contributed mightily to the birth of society; but at the time of these revelations the devious strivings of a vainglorious generation threaten to swamp and submerge the whole complicated structure of a highly specialized civilization. Pleasure-want has long since superseded hunger-want; the legitimate social aims of self-maintenance are rapidly translating themselves into base and threatening forms of self-gratification. Self-maintenance builds society; unbridled self-gratification unfailingly destroys civilization.

3. SOCIALIZING INFLUENCE OF GHOST

FEAR

68:3.1 (766.2) Primitive desires produced the original society, but ghost fear held it together and imparted an extrahuman aspect to its existence. Common fear was physiological in origin: fear of physical pain, unsatisfied hunger, or some earthly calamity; but ghost fear was a new and sublime sort of terror.

68:3.2 (766.3) Probably the greatest single factor in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was the ghost dream. Although most dreams greatly perturbed the primitive mind, the ghost dream actually terrorized early men, driving these superstitious dreamers into each other's arms in willing and earnest association for mutual protection against the vague and unseen imaginary dangers of the spirit world. The ghost dream was one of the

는, 초기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동물은 죽음 이후의 생존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유령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사회는 근본적인 필요성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요소를 문명에 선보였는데, 이 두려움은,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멀리 벗어났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조차 훨씬 심각하게 뛰어넘었다. 죽은 시체에서 떠난 영에 대한 두려움은, 새롭고 놀라운 형태의 두려움, 즉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포심을 드러내게 됐는데, 초기 시대의 산만한 사회 체제가 더 완전하게 단련되도록, 그리고 고대의 원시 집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기여했다. 이 어리석은 미신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존속하는데, 실재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을 통해서, 후대에 “지혜의 근원인 **주**께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준비시켰다. 진화로 생긴 근거 없는 두려움은, 계시로 영감(靈感)받는 **신격**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체되도록 고안돼 있다. 유령에 대한 두려움에 의거한 초기 의식(儀式)은 강력한 사회적 구속력이 됐고, 인류는 먼 옛날부터 항상 영성(靈性)을 달성하려고 다소 애써왔다.

굶주림과 사랑이 사람들을 뭉치도록 강요했고; 허영심과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단결시켰다. 그러나 평화를 증진시켜 주는 계시의 영향이 없다면, 이 감정들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상호연합체들에서 의심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상태를 감당할 수 없다. 초인적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사회의 긴장상태는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폭발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결집된 바로 이런 영향들--즉 굶주림, 사랑, 허영심, 및 두려움--이 상호작용함으로 인해, 인류는 전쟁과 학살에 휩쓸린다.

인간 종족의 평화적 성향은 당연한 재능이 아니며; 그것은 계시된 종교 교훈으로부터, 진보하는 인종들의 누적된 체험으로부터 유래되지만, 특히 **평화의 왕자**인 **예수**의 교훈으로부터 더 유래된다.

4. 사회관행의 진화

현대의 모든 사회 관례(慣例)는, 너희의 미개인 조상의 원시 관습이 진화해서 나타난 것이며; 오늘날의 관례는 과거의 관습이 변경되고 확장된 것이다. 습관은 개인에 해당하고, 관습은 집단에 해당하며; 집단의 관습은, 풍속 또는 부족의 전통으로--곧 큰 덩어리의 관례로-- 발전된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관례 전체는 이런 초기 시작에서 초라하게 기원됐다.

실존하는 조건에 집단생활을 적응시키려는 대중의 노력에서 사회관행이 기원됐다는 사실을

earliest appearing differences between the animal and human types of mind. Animals do not visualize survival after death.

68:3.3 (766.4) Except for this ghost factor, all society was founded on fundamental needs and basic biologic urges. But ghost fear introduced a new factor in civilization, a fear which reaches out and away from the elemental needs of the individual, and which rises far above even the struggles to maintain the group. The dread of the departed spirits of the dead brought to light a new and amazing form of fear, an appalling and powerful terror, which contributed to whipping the loose social orders of early ages into the more thoroughly disciplined and better controlled primitive groups of ancient times. This senseless superstition, some of which still persists, prepared the minds of men, through superstitious fear of the unreal and the supernatural, for the later discovery of “the fear of the Lord which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baseless fears of evolution are designed to be supplanted by the awe for Deity inspired by revelation. The early cult of ghost fear became a powerful social bond, and ever since that far-distant day mankind has been striving more or less for the attainment of spirituality.

68:3.4 (766.5) Hunger and love drove men together; vanity and ghost fear held them together. But these emotions alone, without the influence of peace-promoting revelations, are unable to endure the strain of the suspicions and irritations of human interassociations. Without help from superhuman sources the strain of society breaks down upon reaching certain limits, and these very influences of social mobilization — hunger, love, vanity, and fear — conspire to plunge mankind into war and bloodshed.

68:3.5 (766.6) The peace tendency of the human race is not a natural endowment; it is derived from the teachings of revealed religion,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progressive races, but more especially from the teachings of Jesus, the Prince of Peace.

4. EVOLUTION OF THE MORES

68:4.1 (767.1) All modern social institutions arise from the evolution of the primitive customs of your savage ancestors; the conventions of today are the modified and expanded customs of yesterday. What habit is to the individual, custom is to the group; and group customs develop into folkways or tribal traditions — mass conventions. From these early beginnings all of the institutions of present-day human society take their humble origin.

68:4.2 (767.2)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mores originated in an effort to adjust group living to the

명심해야하며;사회관행은 최초의 사회 규범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족(部族)의 반응은 모두,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 않는 동시에 기쁨과 권력을 누리기를 위한 노력에서 발생했다. 언어의 기원(起源)과 마찬가지로, 풍속은 항상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기원되며, 따라서 항상 신비에 싸여있다.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초자연적 존재를 상상하도록 원시인에게 강요했고, 그리하여 종교와 윤리라는 강력한 사회 세력이 형성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줬으며, 그것들은 역으로 신성불가침의 사회관행과 관례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보존하게 했다. 초기에 사회관행을 형성하고 구체화시킨 한 가지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그 인생 여정(旅程)에 몹시 관심을 갖는다는 믿음이었으며;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있던 동안에 공경했던 생활 법도를, 감히 경솔하게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려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황인종의 조상 숭배에서 잘 예증된다. 나중에 발달된 원시 종교는 사회관행을 안정시키면서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진보하는 문명은 두려움의 속박과 미신의 노예 상태에서 인류를 점점 해방시켜 왔다.

해방시키고 완화하는 지침을 **달라마시아** 선생들이 제시하기 전에는, 고대 인간은 사회관행이라는 제례식의 무기력한 희생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원시의 미개인은 끝없는 예식절차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침에 깨는 시간부터 밤에 동굴로 돌아가 잠드는 순간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곧 그 부족의 풍속에 일치되도록--이뤄져야만 했다. 미개인은 관례의 횡포에 노예가 됐고;그의 삶에는 자유롭거나 자발적이거나 독창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높은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실존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진보할 수 없었다.

초기의 사람은 관습에 꼼짝 못하도록 붙들려 있었으며;미개인은 관례에 실제적인 노예 상태로 있었지만;새로운 방법의 사고(思考)와 개선된 방법의 생활을 감히 시도하려는, 변화된 유형의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곤 했다. 그럼에도 원시인의 타성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는 문명에 잘못 적응하는 파멸의 길로, 너무 갑작스럽게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는, 생물학적 안전 제동장치다.

그러나 이런 관습은 순전한 악은 아니며;관습의 진화는 계속돼야만 했다. 급진적 혁명으로 한꺼번에 관습을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명의 지속에 거의 치명적이다. 관습은 문명을 함께 묶어주는 연속된 끈이 돼왔다. 인류 역사의 경로는, 폐기(廢棄)되는 관습과 진부한 사회 풍습 중에서 남은 것들로 구성돼 있지만;더 향상되고 더 알맞은 관습을 수용하지 않은 채, 자체의 사회관행을 포기하는 문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속되지 못했다.

conditions of mass existence; the mores were man's first social institution. And all of these tribal reactions grew out of the effort to avoid pain and humiliation while at the same time seeking to enjoy pleasure and power. The origin of folkways, like the origin of languages, is always unconscious and unintentional and therefore always shrouded in mystery.

68:4.3 (767.3) Ghost fear drove primitive man to envision the supernatural and thus securely laid the foundations for those powerful social influences of ethics and religion which in turn preserved inviolate the mores and customs of socie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one thing which early established and crystallized the mores was the belief that the dead were jealous of the ways by which they had lived and died; therefore would they visit dire punishment upon those living mortals who dared to treat with careless disdain the rules of living which they had honored when in the flesh. All this is best illustrated by the present reverence of the yellow race for their ancestors. Later developing primitive religion greatly reinforced ghost fear in stabilizing the mores, but advancing civilization has increasingly liberated mankind from the bondage of fear and the slavery of superstition.

68:4.4 (767.4) Prior to the liberating and liberalizing instruction of the Dalamatia teachers, ancient man was held a helpless victim of the ritual of the mores; the primitive savage was hedged about by an endless ceremonial. Everything he did from the time of awakening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he fell asleep in his cave at night had to be done just so — in accordance with the folkways of the tribe. He was a slave to the tyranny of usage; his life contained nothing free, spontaneous, or original. There was no natural progress toward a higher mental, moral, or social existence.

68:4.5 (767.5) Early man was mightily gripped by custom; the savage was a veritable slave to usage; but there have arisen ever and anon those variations from type who have dared to inaugurate new ways of thinking and improved methods of living. Nevertheless, the inertia of primitive man constitutes the biologic safety brake against precipitation too suddenly into the ruinous maladjustment of a too rapidly advancing civilization.

68:4.6 (767.6) But these customs are not an unmitigated evil; their evolution should continue. It is nearly fatal to the continuance of civilization to undertake their wholesale modification by radical revolution. Custom has been the thread of continuity which has held civilization together. The path of human history is strewn with the remnants of discarded customs and obsolete social practices; but no civilization has endured which abandoned its mores except for the adoption of

한 사회가 살아남는 것은 주로 그 사회관행의 점진적 진화에 의존한다. 관습의 진화 과정은, 실험해보고 싶은 욕구에서 발생되며; 새로운 관념들이 제시된다--경쟁이 잇따른다. 진보하는 문명은 진취적인 관념을 허용하고 견디며; 시간과 환경은, 결국 더 알맞은 집단이 살아남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사회의 구성에서 분리되고 격리됐던 각각의 변화가 더 나아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유란시아** 문명이 오랫동안 전진하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퇴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토지 이용 기법--유지하는 기술

땅은 사회의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다. 그리고 사람은 땅의 환경에 순응하도록 자신의 연기 {演技}를 늘 조절해야 한다. 사회관행의 진화는 항상 인구_밀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식별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이다.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기법, 즉 유지하는 기술에 생활규범을 합치면, 풍속의 총합, 즉 사회관행이 된다. 그리고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사람이 적응한 것의 총합이, 문화가 있는 문명이다.

가장 초기에 있었던 인간의 문화는, **동반구**에 있는 강들을 따라서 이뤄졌고, 문명의 힘찬 행진에서 네 개의 큰 단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채집 단계.** 양식의 부족과 굶주림은, 최초의 산업 조직 형태, 즉 원시적으로 양식을_채집 {採集}하는 행렬들이 이어지게 했다. 어떤 때에는, 땅에 떨어진 양식을 찾는 굶주린 자들의 행렬이 10 마일에 이르기도 했다. 이것은 원시 방랑기 문화였으며, 오늘날 **아프리카 부시먼** 종족이 따르는 생활 형태다.

2. **수렵 단계.** 무기를 만드는 도구가 발명되면서, 사람은 사냥꾼이 됐고, 따라서 양식의 노예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위험한 전투에서 손을 심하게 다치자, 생각이 깊은 **안돈족속**은, 팔 대신 긴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 끝에, 손을 대신하는 단단한 부싯돌 조각을 힘줄로 붙들어 매는 개념을 다시 발견했다. 여러 부족이 이와 비슷한 방법을 독자적으로 발견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망치는 인간 문명에서 크게 내딛는 발걸음을 대표한다. 오늘날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원주민은 이런 단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청색인은 노련한 수렵꾼과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됐고, 강에 담을 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며, 남는 것은 겨울을 위해서 건조시켰다. 여러 형태의 교묘한 함정과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이용됐지만, 원시적인 종족일수록 작은 동물을 사냥했

better and more fit customs.

68:4.7 (767.7) The survival of a society depends chiefly on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its mores. The process of custom evolution grows out of the desire for experimentation; new ideas are put forward — competition ensues. A progressing civilization embraces the progressive idea and endures; time and circumstance finally select the fitter group for survival. But this does not mean that each separate and isolated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human society has been for the better. No! indeed no! for there have been many, many retrogressions in the long forward struggle of Urantia civilization.

5. LAND TECHNIQUES — MAINTENANCE ARTS

68:5.1 (768.1) Land is the stage of society; men are the actors. And man must ever adjust his performances to conform to the land situation. The evolution of the mores is always dependent on the land-man ratio.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its discernment. Man's land technique, or maintenance arts, plus his standards of living, equal the sum total of the folkways, the mores. And the sum of man's adjustment to the life demands equals his cultural civilization.

68:5.2 (768.2) The earliest human cultures arose along the rivers of the Eastern Hemisphere, and there were four great steps in the forward march of civilization. They were:

68:5.3 (768.3) 1. *The collection stage.* Food coercion, hunger, led to the first form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primitive food-gathering lines. Sometimes such a line of hunger march would be ten miles long as it passed over the land gleaned food. This was the primitive nomadic stage of culture and is the mode of life now followed by the African Bushmen.

68:5.4 (768.4) 2. *The hunting stage.* The invention of weapon tools enabled man to become a hunter and thus to gain considerable freedom from food slavery. A thoughtful Andonite who had severely bruised his fist in a serious combat rediscovered the idea of using a long stick for his arm and a piece of hard flint, bound on the end with sinews, for his fist. Many tribes made independent discoveries of this sort, and these various forms of hammers represented one of the great forward steps in human civilization. Today some Australian natives have progressed little beyond this stage.

68:5.5 (768.5) The blue men became expert hunters and trappers; by fencing the rivers they caught fish in great numbers, drying the surplus for winter use. Many forms of ingenious snares and traps were employed in catching game, but the more

다.

3. **목축 단계.** 이 문명 단계는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아랍족속**과 **아프리카** 원주민은, 아주 최근까지도 목축하는 민족에 속한다.

목축 생활은 양식에 노예 된 상태를 훨씬 줄여줬고, 사람은 자기 자산(資産)의 증식, 즉 자기 짐승 때가 증식하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 법을 배웠으며; 이것이 문화와 진보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부여했다.

목축 이전의 사회는 남녀가 협동하는 사회였지만, 축산업이 널리 보급되면서, 여자는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처지로 점차 떨어졌다. 초기에는, 동물성 양식 준비가 남자의 의무였고, 식물성 식품 제공은 여자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자가 목축 시대의 생활에 들어가자, 여자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다. 여자는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가꾸기 위해서 여전히 수고해야 했지만, 남자는 풍부한 동물성 식품 제공을 위해 자기 가축 떼를 돌보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비교적 덜 의존하게 됐고; 목축 시대 내내, 여자의 지위는 꾸준히 낮아졌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여자가 인간 동물이나 다름없었고, 일하기와 인간 자손 낳기를 맡았으며, 가축 떼에게 노동하고 새끼 낳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목축 시대의 남자는 자기 가축을 무척 소중히 다뤘고; 너무나 아낀 나머지, 자기 아내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을 수 없을 정도였다.

4. **경작 단계.** 이 시대는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가능하게 됐으며; 가장 높은 유형의 물질문명에 해당된다. **캘리개스타**와 **아담**은 원예와 농업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아담**과 **이브**는 목자(牧者)가 아니라 채소 가꾸는 자였고, 채소 재배는 당시에 가장 진보된 문화였다. 식물 재배는 온 인류 종족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

농업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인구밀도가 네 배로 높아졌다. 농업은 그 전에 있었던 문화 단계의 목축 생활과 겹칠 수도 있었다. 세 개의 단계가 겹쳐질 때, 남자는 사냥했고 여자는 땅을 경작했다.

목동과 땅 경작자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다. 사냥꾼과 목동은 투쟁적이고 호전적이었으며; 농부는 평화를 더 사랑하는 유형이다. 동물과의 연합은 투쟁과 무력(武力)을 암시하고; 식물과의 연합은 인내와 침착성과 평화가 스며들게 한다. 농업과 산업주의는 평화로운 활동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 활동으로서, 두 산업의 약점은 자극과 모험심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 사회는, 사냥 단계에서 목축 단계를 거쳐 농업이라는 토지 단계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런 진보하는 문명의 각 단계마다, 떠돌이 생활은

primitive races did not hunt the larger animals.

68:5.6 (768.6) 3. *The pastoral stage.* This phase of civilization was made possible b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The Arabs and the natives of Africa are among the more recent pastoral peoples.

68:5.7 (768.7) Pastoral living afforded further relief from food slavery; man learned to live on the interest of his capital, the increase in his flocks; and this provided more leisure for culture and progress.

68:5.8 (768.8) Prepastoral society was one of sex co-operation, but the spread of animal husbandry reduced women to the depths of social slavery. In earlier times it was man's duty to secure the animal food, woman's business to provide the vegetable edibles. Therefore, when man entered the pastoral era of his existence, woman's dignity fell greatly. She must still toil to produce the vegetable necessities of life, whereas the man need only go to his herds to provide an abundance of animal food. Man thus became relatively independent of woman; throughout the entire pastoral age woman's status steadily declined. By the close of this era she had become scarcely more than a human animal, consigned to work and to bear human offspring, much as the animals of the herd were expected to labor and bring forth young. The men of the pastoral ages had great love for their cattle; all the more pity they could not have developed a deeper affection for their wives.

68:5.9 (769.1) 4. *The agricultural stage.* This era was brought about by the domestication of plants, and it represents the highest type of material civilization. Both Caligastia and Adam endeavored to teach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Adam and Eve were gardeners, not shepherds, and gardening was an advanced culture in those days. The growing of plants exerts an ennobling influence on all races of mankind.

68:5.10 (769.2) Agriculture more than quadrupled the land-man ratio of the world. It may be combined with the pastoral pursuits of the former cultural stage. When the three stages overlap, men hunt and women till the soil.

68:5.11 (769.3) There has always been friction between the herders and the tillers of the soil. The hunter and herder were militant, warlike; the agriculturist is a more peace-loving type. Association with animals suggests struggle and force; association with plants instills patience, quiet, and peace. Agriculture and industrialism are the activities of peace. But the weakness of both, as world social activities, is that they lack excitement and adventure.

68:5.12 (769.4) Human society has evolved from the hunting stage through that of the herders to the territorial stage of agriculture. And each stage of

점점 줄어들었고;남자는 점점 더 가정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 농업을 보충하게 되고, 그 결과로 도시화가 더욱 이뤄지고, 시민 계층에는 농업과 상관없는 집단이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 발전이라든, 반드시 견고한 농업 기반에 기초를 뒤흔들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산업 시대는 살아남기를 바랄 수 없다.

6. 문화의 진화

사람은, 흙에 속하는 존재, 즉 자연의 자손이며;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확실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문자적으로도 참되다. 사람의 근본적 투쟁은 땅에 대한 투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원시 인간의 처음 사회 연합은, 땅과의 이런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구밀도는 모든 사회 문명의 기반이다.

사람의 지성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수단으로 땅의 소산(所産)을 증대시켰으며;동시에 자손의 자연증가는 어느 정도 통제됐고, 그리하여 문화가 있는 문명사회의 건설에 생계와 여가(餘暇)를 제공했다.

인간 사회는, 인구가 땅을 경작하는 기술에 정비례로, 그리고 주어진 생활수준에 반비례로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지배된다. 이런 초기 시대 내내, 사람과 땅의 관계에서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심지어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양쪽의 예상 가치를 결정했다. 풍부한 땅이--즉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있던 시대에는, 사람의 필요성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더욱 증대됐으며;따라서 생명을 잃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땅이 부족해서 그에 따라 인구가 과밀(過密)하게 된 기간에는, 인간의 생명이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전쟁, 기근, 및 역병(疫病)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땅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될 때, 필연적으로 투쟁이 재연(再演)되며;인간 본성에서 가장 나쁜 특징들이 표출된다. 땅의 소산의 증대, 기계 기술의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은 모두, 인간 본성에서 더 좋은 면이 개발되도록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척지의 사회는 인간성의 미숙한 면을 드러내며;순수 예술과 참된 과학의 진보는, 영적 문화와 함께,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농업과 산업에 중

this progressive civilization was accompanied by less and less of nomadism; more and more man began to live at home.

68:5.13 (769.5) And now is industry supplementing agriculture, with consequently increased urbanization and multiplication of nonagricultural groups of citizenship classes. But an industrial era cannot hope to survive if its leaders fail to recognize that even the highest social developments must ever rest upon a sound agricultural basis.

6. EVOLUTION OF CULTURE

68:6.1 (769.6) Man is a creature of the soil, a child of nature; no matter how earnestly he may try to escape from the land, in the last reckoning he is certain to fail. “Dust you are and to dust shall you return” is literally true of all mankind. The basic struggle of man was, and is, and ever shall be, for land. The first social associations of primitive human beings were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se land struggles. The land-man ratio underlies all social civilization.

68:6.2 (769.7) Man's intelligence, by means of the arts and sciences, increased the land yield; at the same time the natural increase in offspring was somewhat brought under control, and thus was provided the sustenance and leisure to build a cultural civilization.

68:6.3 (769.8) Human society is controlled by a law which decrees that the population must vary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rts and inversely with a given standard of living. Throughout these early ages, even more than at present,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as concerned men and land determined the estimated value of both. During the times of plentiful land — unoccupied territory — the need for men was great, and therefore the value of human life was much enhanced; hence the loss of life was more horrifying. During periods of land scarcity and associated overpopulation, human life became comparatively cheapened so that war, famine, and pestilence were regarded with less concern.

68:6.4 (770.1) When the land yield is reduced or the population is increased, the inevitable struggle is renewed; the very worst traits of human nature are brought to the surface. The improvement of the land yield, the extension of the mechanical arts, and the reduction of population all ten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better side of human nature.

68:6.5 (770.2) Frontier society develops the unskilled side of humanity; the fine arts and true scientific progress, together with spiritual culture, have all thrived best in the larger centers of life when

사하는 인구의 지원을 받을 때,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 중심지에서 가장 효과 있게 이뤄진다. 도시는, 선한 쪽으로든지 악한 쪽으로든지, 그 거주민의 권력을 반드시 배가시킨다.

가족의 크기는 생활수준에 늘 영향 받아왔다.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또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가족의 크기가 작아진다.

여러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내내, 생활수준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살아남은 인구의 질{質}을 결정했다. 지역 계층의 생활수준은, 새로운 사회 신분계층, 새로운 사회관행이 태동되게 한다. 생활 규범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심하게 호화스럽게 되면, 그 규범은 급속도로 자멸(自滅)한다. 신분계층은, 조밀한 인구가 격렬하게 경쟁하는 심한 사회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직접 결과다.

초기 인종들은, 인구 제한을 위해서 고안된 풍습에 종종 의존했으며; 모든 원시 부족은 불구자와 허약한 아이를 죽였다. 여자아이는 아내로 구매되기 전에 종종 살해됐다. 때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목 졸리기도 했지만, 버리는 방법을 선호했다. 둘 이상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마술 또는 부정{不貞} 때문이라고 믿었으므로, 쌍둥이의 아버지는 대개 그 가운데 하나를 죽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성{同性}의 쌍둥이는 살렸다. 쌍둥이에 대한 이런 금기{禁忌}가 한때 보편적으로 퍼졌지만, **안돈족속**의 사회관행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사람들은 쌍둥이를 항상 행운의 징조로 여겼다.

많은 인종이 낙태하는 기법을 연구했고, 이런 풍습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 낳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됐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지만, 더 문명화된 집단 가운데에서는 이 사생아{私生兒}가 소녀의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됐다. 낙태와 유아 살해 두 가지 풍습 때문에, 많은 원시 씨족이 실제로 멸절됐다. 그러나 사회관행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일단 젖을 먹인 후에는 아이가 거의 살해되지 않았다--모성애가 훨씬 강하다.

20세기에도 이런 원시적 인구 통제 방법이 존속한다. **오스트랄리아**에는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 기르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있다. 최근까지, 다섯 번째 태어나는 아이마다 잡아먹는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어떤 부족은, 아직도 특정한 불길한 날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데, 그 결과로 전체 신생아의 약 25 퍼센트가 죽는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과잉인구 현상이 과거에 심각하게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전쟁이 줄어들고 과학이 인간의 질병을 점점 더 통제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과잉인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런 때가 되면, 세계를 이끄는 지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임할 것이다. **유란시아**의

supported by a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pulation slightly under the land-man ratio. Cities always multiply the power of their inhabitants for either good or evil.

68:6.6 (770.3) The size of the family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the standards of living. The higher the standard the smaller the family, up to the point of established status or gradual extinction.

68:6.7 (770.4) All down through the ages the standards of living have determined the quality of a surviving population in contrast with mere quantity. Local class standards of living give origin to new social castes, new mores. When standards of living become too complicated or too highly luxurious, they speedily become suicidal. Caste is the direct result of the high social pressure of keen competition produced by dense populations.

68:6.8 (770.5) The early races often resorted to practices designed to restrict population; all primitive tribes killed deformed and sickly children. Girl babies were frequently killed before the times of wife purchase. Children were sometimes strangled at birth, but the favorite method was exposure. The father of twins usually insisted that one be killed since multiple births were believed to be caused either by magic or by infidelity. As a rule, however, twins of the same sex were spared. While these taboos on twins were once well-nigh universal, they were never a part of the Andonite mores; these peoples always regarded twins as omens of good luck.

68:6.9 (770.6) Many races learned the technique of abortion, and this practice became very comm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boo on childbirth among the unmarried. It was long the custom for a maiden to kill her offspring, but among more civilized groups these illegitimate children became the wards of the girl's mother. Many primitive clans were virtually exterminated by the practice of both abortion and infanticide. But regardless of the dictates of the mores, very few children were ever destroyed after having once been suckled — maternal affection is too strong.

68:6.10 (770.7)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there persist remnants of these primitive population controls. There is a tribe in Australia whose mothers refuse to rear more than two or three children. Not long since, one cannibalistic tribe ate every fifth child born. In Madagascar some tribes still destroy all children born on certain unlucky days, resulting in the death of about twenty-five per cent of all babies.

68:6.11 (770.8) From a world standpoint, overpopulation has never been a serious problem in the past, but if war is lessened and science increasingly controls human diseases, it may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 near future. At such a time the great test of the wisdom of world

통치자들이, 보통 이상{以上}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증가하는 보통 이하의 집단들의 양극단 대신에, 평범하거나 안정된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인가? 보통 사람은 육성돼야만 할 것이며; 보통 사람은 문명의 중심이고, 종족에서 천재성이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원천{源泉}이다. 보통 이하의 사람은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낮은 수준의 산업, 즉 동물 수준보다는 높은 지성을 필요로 하지만, 상류 유형의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노예가 되고 속박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낮은 등급의 노동에 필요한 인구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leadership will present itself. Will Urantia rulers have the insight and courage to foster the multiplication of the average or stabilized human being instead of the extremes of the supernormal and the enormously increasing groups of the subnormal? The normal man should be fostered; he is the backbone of civilization and the source of the mutant geniuses of the race. The subnormal man should be kept under society's control; no more should be produced than are required to administer the lower levels of industry, those tasks requiring intelligence above the animal level but making such low-grade demands as to prove veritable slavery and bondage for the higher types of mankind.

68:6.12 (77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sometime stationed on Urantia.]

제69편. 원시적 인간 제도

⇨ 068

유란시아 책

07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69편
원시적 인간 제도

섹션

소개

1. 기본적인 인간 제도
2. 산업의 대동
3. 노동의 전문화
4. 거래의 발단
5. 자본의 발단
6. 불과 문명의 관계
7. 동물의 활용
8. 문명의 한 요소로서의 노예제도
9. 사유재산

소개

감정적으로, 유머, 예술, 및 종교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에서 사람은 동물 조상을 능가한다. 사회적으로, 사람은 연장을 만들고 대화하며 제도를 만드는 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

인간이 사회 집단을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그런 집합체는 반드시, 제도화를 이룩하는 특정 활동 경향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의 제도 대부분은, 노동을 절약하고, 동시에 집단 안전의 증진에 무언가 공헌한다는 것이 입증돼 왔다.

문명화된 사람은, 자신이 확립한 제도의 특성, 안정성, 및 연속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지만, 인간 제도 전체는, 금기들이 보존하고 종교가 품위를 부여하면서 축적된 과거의 사회관행에 불과하다. 그런 유산(遺産)은 전통으로 변하고, 전통은 결국 관례로 변형된다.

PAPER 69
PRIMITIVE HUMAN INSTITUTIONS

SECTIONS

Introduction

1. Basic Human Institutions
2. The Dawn of Industry
3. The Specialization of Labor
4. The Beginnings of Trade
5. The Beginnings of Capital
6. Fire in Relation to Civilization
7. The Utilization of Animals
8. Slavery as a Factor in Civilization
9. Private Property

INTRODUCTION

69:0.1 (772.1) EMOTIONALLY, man transcends his animal ancestors in his ability to appreciate humor, art, and religion. Socially, man exhibits his superiority in that he is a toolmaker, a communicator, and an institution builder.

69:0.2 (772.2) When human beings long maintain social groups, such aggregations always result in the creation of certain activity trends which culminate in institutionalization. Most of man's institutions have proved to be laborsaving while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something to the enhancement of group security.

69:0.3 (772.3) Civilized man takes great pride in the character, stability, and continuity of his established institutions, but all human institutions are merely the accumulated mores of the past as they have been conserved by taboos and dignified by religion. Such legacies become traditions, and traditions ultimately metamorphose into conventions.

1. 기본적인 인간 제도

개성이 빛을 잃고 독창력이 퇴보하기 때문에, 제도의 과도한 발달은 반드시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제도는 모두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 필요를 보살핀다. 사람은 발전하는 문명이 산출하는 이런 것들에 자신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그 제도를 통제해야 한다.

인간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된다:

1. **자아_유지에** 해당하는 제도. 이런 제도는 식욕{食慾} 및 이에 관련된 자아_보존 본능에서 발생하는 풍습을 받아들인다. 이런 제도는, 산업, 소득을 위한 소유권 투쟁, 그리고 사회의 통제 기관 전체를 포함한다. 오래지 않아서 두려움의 본능이, 금기, 관례, 및 종교적 제재를 수단으로 해서, 생존을 위한 이런 제도의 확립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두려움, 무지, 및 미신은, 모든 인간 제도가 초기에 기원되도록, 그리고 후일에 발전하도록, 탁월한 역할을 담당했다.

2. **자아_영속에** 해당하는 제도. 이것은, 성욕, 모성{母性} 본능, 그리고 인종들의 고상한 부드러운 감정에서 생겨나는 공동체가 확립한 제도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에 대한, 즉 가족생활, 교육, 윤리, 및 종교를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제도에는, 결혼 관습, 방어를 위한 전쟁, 그리고 주택 건설 등이 포함된다.

3. **자아_만족에** 해당하는 제도. 이것은 허영심의 성향과 자존심의 감정들로부터 자라난 풍습이며; 옷 입기와 걸모습 치장하기, 사회 관습, 영광을 얻기 위한 전쟁, 춤, 오락, 놀이, 그리고 관능적 만족을 위한 다른 국면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명은, 자아_만족에 해당하는 뚜렷한 제도를 발전시킨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런 세 가지 사회 풍습 집단은 긴밀하게 서로 관련돼 있고, 끊임없이 서로 의존한다. **유란시아**에서 이 제도들은 단일 사회 기구로서 작용하는 복잡한 조직에 해당한다.

2. 산업의 태동

원시 산업은 끔찍한 굶주림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서서히 자라났다. 초기에 살았던 사람은, 식량난이 닥치는 때를 대비해서, 풍부한 수확이 있는 동안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일부 동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초기의 검소함과 원시산업이 태동되기 전에는, 보통 수준의 많은 부족{部族}이 궁핍과 현실적인 고통을 겪었다. 초기의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

1. BASIC HUMAN INSTITUTIONS

69:1.1 (772.4) All human institutions minister to some social need, past or present, notwithstanding that their overdevelopment unfailingly detracts from the worth-whileness of the individual in that personality is overshadowed and initiative is diminished. Man should control his institutions rather than permit himself to be dominated by these creations of advancing civilization.

69:1.2 (772.5) Human institutions are of three general classes:

69:1.3 (772.6) 1. *The institutions of self-maintenance.* These institutions embrace those practices growing out of food hunger and its associated instincts of self-preservation. They include industry, property, war for gain, and all the regulative machinery of society. Sooner or later the fear instinct fosters the establishment of these institutions of survival by means of taboo, convention, and religious sanction. But fear, ignorance, and superstition have played a prominent part in the early origin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all human institutions.

69:1.4 (772.7) 2. *The institutions of self-perpetuation.* These are the establishments of society growing out of sex hunger, maternal instinct, and the higher tender emotions of the races. They embrace the social safeguards of the home and the school, of family life, education, ethics, and religion. They include marriage customs, war for defense, and home building.

69:1.5 (772.8) 3. *The institutions of self-gratification.* These are the practices growing out of vanity proclivities and pride emotions; and they embrace customs i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 social usages, war for glory, dancing, amusement, games, and other phases of sensual gratification. But civilization has never evolved distinctive institutions of self-gratification.

69:1.6 (772.9) These three groups of social practices are intimately interrelated and minutely interdependent the one upon the other. On Urantia they represent a complex organization which functions as a single social mechanism.

2. THE DAWN OF INDUSTRY

69:2.1 (773.2) Primitive industry slowly grew up as an insurance against the terrors of famine. Early in his existence man began to draw lessons from some of the animals that, during a harvest of plenty, store up food against the days of scarcity.

69:2.2 (773.3) Before the dawn of early frugality and primitive industry the lot of the average tribe was one of destitution and real suffering. Early man

해서 전체 동물 세계와 경쟁해야만 했다. 경쟁의 무게가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계속 끌어 내리며; 빈곤은 사람의 선천적이고 강압적인 유산이다. 재산은 당연한 선물이 아니며; 노동, 지식, 및 조직체에서 비롯된다.

원시인은 연합의 이점(利點)을 재빨리 깨닫게 됐다. 연합은 조직체를 형성했고, 조직체로 말미암은 처음 결과는, 노동의 분화(分化)와, 그로 인한 시간과 물질의 직접적인 절약이었다. 노동의 이런 전문화는 곤경에 적응함으로써--곧 저항이 약한 길을 추구함으로써-- 형성됐다. 원시 미개인은 무엇이든지 실제 일을 할 때, 기쁘게, 즉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순응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원시인은 힘든 일을 싫어했고, 심각한 위험에 닥치지 않는 한 서두는 법이 없었다. 노동에서 시간 요소, 즉 특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이행한다는 관념은, 전적으로 현대의 성향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전혀 서둘지 않았다. 초기 사람 가운데서 천부적으로 게으른 인종들을 산업 수단이 되도록 몰아붙인 것은, 살기 위한 격렬한 투쟁, 그리고 계속 발전되는 생활 규범이라는 이중적 요구였다.

노동, 즉 의도된 노력이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는데, 짐승의 노력은 주로 본능적이다. 노동의 필요성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왕자**의 참모진은 모두 일했고; **유란시아**에서 육체 노동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 많이 활약했다. **아담**은 채소를 가꾸는 자였으며;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일했다--그는 창조자였고 만유(萬有)의 유지자였다. **히브리인**은 근면을 최고로 평가한 첫 부족이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 종교들 가운데 다수는 놀고 지내는 초기 개념으로 되돌아갔다. **주피터**는 술꾼이었고, **부다**는 한가하게 목상하는 자로 바뀌었다.

상익 부족들은, 열대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됐을 때, 제법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술을 신봉하는 게으른 자들과, 일하기를 주장하는 자들--곧 장래를 대비했던 자들-- 사이에는 아주 오랜 세월 갈등이 있었다.

인간은, 불, 물, 및 양식을 저장하는 데 처음으로 선견(先見)을 이용했다. 그러나 원시인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도박꾼이었으며; 항상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 했고, 이런 초기 시대 동안에, 근면한 풍습에서 생긴 성과를 모두 마법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마술은, 통찰력, 금욕, 및 산업에게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3. 노동의 전문화

원시 사회에서 노동의 분업은, 처음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후에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결정됐다. 초기에 노동이 전문화된 체제는 다음과

had to compete with the whole animal world for his food. Competition-gravity ever pulls man down toward the beast level; poverty is his natural and tyrannical estate. Wealth is not a natural gift; it results from labor, knowledge, and organization.

69:2.3 (773.4) Primitive man was not slow to recognize the advantages of association. Association led to organization, and the first result of organization was division of labor, with its immediate saving of time and materials. These specializations of labor arose by adaptation to pressure — pursuing the paths of lessened resistance. Primitive savages never did any real work cheerfully or willingly. With them conformity was due to the coercion of necessity.

69:2.4 (773.5) Primitive man disliked hard work, and he would not hurry unless confronted by grave danger. The time element in labor, the idea of doing a given task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s entirely a modern notion. The ancients were never rushed. It was the double demands of the intense struggle for existence and of the ever-advancing standards of living that drove the naturally inactive races of early man into avenues of industry.

69:2.5 (773.6) Labor, the efforts of design, distinguishes man from the beast, whose exertions are largely instinctive. The necessity for labor is man's paramount blessing. The Prince's staff all worked; they did much to ennoble physical labor on Urantia. Adam was a gardener; the God of the Hebrews labored — he was the creator and upholder of all things. The Hebrews were the first tribe to put a supreme premium on industry; they were the first people to decree that “he who does not work shall not eat.” But many of the religions of the world reverted to the early ideal of idleness. Jupiter was a reveler, and Buddha became a reflective devotee of leisure.

69:2.6 (773.7) The Sangik tribes were fairly industrious when residing away from the tropics. But there was a long, long struggle between the lazy devotees of magic and the apostles of work — those who exercised foresight.

69:2.7 (773.8) The first human foresight was directed toward the preservation of fire, water, and food. But primitive man was a natural-born gambler; he always wanted to get something for nothing, and all too often during these early times the success which accrued from patient practice was attributed to charms. Magic was slow to give way before foresight, self-denial, and industry.

3. THE SPECIALIZATION OF LABOR

69:3.1 (773.9) The divisions of labor in primitive society were determined first by natural, and then by social, circumstances. The early order of

같았다:

1. *남녀 구별에 따른 전문화.* 여자의 일은 자녀에 대한 선택적 태도에서 유래했으며; 천부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이 아기를 사랑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됐고, 한편 남자는 사냥꾼과 전사(戰士)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시대가 변천하는 내내, 여자는 금기로 인해서 자기 분야의 일만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됐다. 남자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로 더 마음에 드는 일을 택했고, 일상적인 고된 일은 여자에게 맡겼다. 남자는 여자의 일을 하기를 항상 부끄러워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일을 하는 데서 조금도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에는 언제나 남녀가 함께 일했다.

2. *나이의 질병의 결과로 발생한 변경.* 이런 차이가 그 다음 노동 분업을 결정했다. 노인과 장애인은 일찍부터 연장과 무기를 만드는 일에 배치됐다. 나중에는 물 대는 일이 그들에게 할당됐다.

3. *종교에 근거한 분화.* 주술사(呪術師)는 육체 노동을 면제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전문 계층의 선구자였다. 대장장이는 주술사에 필적할 만큼 요술쟁이로 취급되는 작은 집단이었다. 금속을 다루는 그들의 솜씨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흰 대장장이”와 “검은 대장장이”로 인해서, 백색과 흑색 마술에 대한 초기 믿음이 기원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믿음은,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즉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미신과 결부됐다.

대장장이는 특혜를 누린 최초의 비종교 집단이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중립자로 간주됐고, 이런 특별대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층, 즉 원시 사회의 정치꾼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야비하게 남용함으로써, 대장장이는 널리 미움 받는 대상이 됐고, 주술사는 이 기회에 자기들의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더 부추겼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첫 시험에서 종교가(곧 미신이) 승리했다. 대장장이는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주거 지역 외곽에서, 최초의 여인숙(旅人宿), 즉 일반인을 위한 숙박소를 운영하게 됐다.

4. *주인공 노예.* 노동에서 그 다음 분화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관계에서 발생했고, 인간 노예제도의 시작을 의미했다.

5. *다양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재능에 근거한 분화.* 사람의 타고난 차이가, 노동의 더 많은 분업을 조장했는데; 모든 인간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

산업에서 초기의 전문가는 부싯돌 가공자와

specialization in labor was:

69:3.2 (774.1) 1. *Specialization based on sex.* Woman's work was derived from the selective presence of the child; women naturally love babies more than men do. Thus woman became the routine worker, while man became the hunter and fighter, engaging in accentuated periods of work and rest.

69:3.3 (774.2) All down through the ages the taboos have operated to keep woman strictly in her own field. Man has most selfishly chosen the more agreeable work, leaving the routine drudgery to woman. Man has always been ashamed to do woman's work, but woman has never shown any reluctance to doing man's work. But strange to record, both men and women have always worked together in building and furnishing the home.

69:3.4 (774.3) 2. *Modification consequent upon age and disease.* These differences determined the next division of labor. The old men and cripples were early set to work making tools and weapons. They were later assigned to building irrigation works.

69:3.5 (774.4) 3. *Differentiation based on religion.* The medicine men were the first human beings to be exempted from physical toil; they were the pioneer professional class. The smiths were a small group who competed with the medicine men as magicians. Their skill in working with metals made the people afraid of them. The “white smiths” and the “black smiths” gave origin to the early beliefs in white and black magic. And this belief later became involved in the superstition of good and bad ghosts, good and bad spirits.

69:3.6 (774.5) Smiths were the first nonreligious group to enjoy special privileges. They were regarded as neutrals during war, and this extra leisure led to their becoming, as a class, the politicians of primitive society. But through gross abuse of these privileges the smiths became universally hated, and the medicine men lost no time in fostering hatred for their competitors. In this first contest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religion (superstition) won. After being driven out of the villages, the smiths maintained the first inns, public lodginghouses, on the outskirts of the settlements.

69:3.7 (774.6) 4. *Master and slave.* The next differentiation of labor grew out of the relations of the conqueror to the conquered, and that meant the beginning of human slavery.

69:3.8 (774.7) 5. *Differentiation based on diverse physical and mental endowments.* Further divisions of labor were favored by the inherent differences in men; all human beings are not born equal.

69:3.9 (774.8) The early specialists in industry were

석공{石工}이었고;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출현했다. 나중에는 집단적 전문화가 이뤄졌으며;전체 가족과 씨족이 특정한 종류의 노동에 전념했다. 가장 오래된 사제 신분계층 가운데 하나는, 부족의 주술사와는 별도로, 능숙한 칼 제작자의 가족을 미신적으로 우러러 받든 것 때문에 생겼다.

산업에서 첫 전문가 집단은 암염{巖鹽} 수출업자와 도공{陶工}이었다. 여자는 단순한 질그릇을 만들었고, 남자는 화려한 것을 만들었다.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여자가 바느질과 천 짜는 일을 맡았고, 다른 부족에서는 남자가 그 일을 했다.

초기 상인{商人}은 여자였는데;그들은 첩자{諜者}로 고용됐고, 거래하는 일은 덤이었다. 마침내 무역이 확장되자, 여자는 중개인으로--곧 도매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되자 상인계층이 형성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수수료와 이익금을 부과했다. 물물교환을 하는 무리가 늘어나게 되자 상업으로 발전했으며;상품 교환에 뒤이어, 숙련된 노동의 교환이 이뤄졌다.

4. 거래의 발단

생포{生捕}함으로 결혼하는 것 다음에 계약 결혼이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로, 습격으로 강탈한 다음에는 물물 교환이 뒤따랐다. 그러나 무언{無言}으로 물물교환 하는 초기 풍습과 현대의 교환 방식 사이에는, 오랜 동안 해적 행위가 있었다.

최초의 물물교환은, 무장{武裝}한 상인들이 중간 지점에 상품을 남겨둌으로써 이뤄졌다. 여자가 최초의 시장{市場}을 차렸으며;최초의 상인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 반면;남자는 전사{戰士}였기 때문이다. 거래하는 계산대가 매우 일찍부터 개발됐는데, 이것은 상인들이 무기를 갖고 상대방에게 갈 수 없도록 막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벽이었다.

무언의 물물교환을 위해 맡겨진 물건을 지키는 일에 주물{呪物}이 사용됐다. 그런 시장은 도둑맞을 염려가 없었고, 물물교환이나 구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옮길 수 없었으며;주물이 보호하면, 물건은 항상 안전했다. 초기 상인들은 자기 부족에게는 철저히 정직했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게 여겼다. 초기 히브리인도, 이방인과의 거래에는 별도의 윤리 규범을 인정했다.

무언의 물물교환이 오래 계속된 후에,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고, 신성시되는 시장에서 만나게 됐다. 바로 이런 장터가, 신전{神殿}이 세워진 처음 장소가 됐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나중에 “도피성{逃避城}”으로 알려지게 됐다. 어떤 도피자든지 시장에 들어가면 안전했고 공격받을 염려가 없었다.

최초의 저울추는 소맥 및 기타 곡식들이었다. 최초의 교환 수단은 물고기 또는 염소였다. 나중

the flint flakers and stone masons; next came the smiths. Subsequently group specialization developed; whole families and clans dedicated themselves to certain sorts of labor. The origin of one of the earliest castes of priests, apart from the tribal medicine men, was due to the superstitious exaltation of a family of expert swordmakers.

69:3.10 (774.9) The first group specialists in industry were rock salt exporters and potters. Women made the plain pottery and men the fancy. Among some tribes sewing and weaving were done by women, in others by the men.

69:3.11 (774.10) The early traders were women; they were employed as spies, carrying on commerce as a side line. Presently trade expanded, the women acting as intermediaries — jobbers. Then came the merchant class, charging a commission, profit, for their services. Growth of group barter developed into commerce; and following the exchange of commodities came the exchange of skilled labor.

4. THE BEGINNINGS OF TRADE

69:4.1 (775.1) Just as marriage by contract followed marriage by capture, so trade by barter followed seizure by raids. But a long period of piracy intervened between the early practices of silent barter and the later trade by modern exchange methods.

69:4.2 (775.2) The first barter was conducted by armed traders who would leave their goods on a neutral spot. Women held the first markets; they were the earliest traders, and this was because they were the burden bearers; the men were warriors. Very early the trading counter was developed, a wall wide enough to prevent the traders reaching each other with weapons.

69:4.3 (775.3) A fetish was used to stand guard over the deposits of goods for silent barter. Such market places were secure against theft; nothing would be removed except by barter or purchase; with a fetish on guard the goods were always safe. The early traders were scrupulously honest within their own tribes but regarded it as all right to cheat distant strangers. Even the early Hebrews recognized a separate code of ethics in their dealings with the gentiles.

69:4.4 (775.4) For ages silent barter continued before men would meet, unarmed, on the sacred market place. These same market squares became the first places of sanctuary and in some countries were later known as “cities of refuge.” Any fugitive reaching the market place was safe and secure against attack.

69:4.5 (775.5) The first weights were grains of wheat and other cereals. The first medium of exchange

에는 암소가 물물교환 단위가 됐다.

현대의 필기{筆記}는 초기 거래 기록에서 기원됐고, 사람의 최초 문서는, 거래를 선전하는 문서, 즉 소금 선전문이었다. 초기 전쟁 가운데 다수는, 부싷돌, 소금, 그리고 금속 같은 천연 매장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부족들 간 최초의 공식 조약{條約}은, 매장된 소금의 공동 사용과 관련됐다. 조약을 맺은 이 장소는, 서로 친근하고, 평화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부족이 상호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필기{筆記}는, “통신용 막대기”, 매듭진 끈, 그림으로 쓰기, 상형문자, 그리고 조가비를 구슬로 엮은 띠를 거쳐서, 초기의 기호화된 문자로 발전했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원시 형태에서, 달려가는 사람, 동물 타는 사람, 철도, 비행기뿐 아니라, 전보, 전화, 무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

고대의 상인이, 새로운 착상과 개량된 방법을, 사람 사는 모든 세계로 퍼뜨렸다. 상업에 모험심이 결합되자, 탐험과 발견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운송수단이 생겨나게 됐다. 상업은 문화의 상호교류 증진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5. 자본의 발단

자본{資本}은 현재를 체념하여 미래를 보장하려는 진통{産苦}이다. 저축은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양식 저장은 자아통제를 개발했고, 자본과 노동으로 인한 첫 문제를 야기했다. 양식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wert한 이점{利點}을 가졌다.

초기 은행가는 그 부족 중에서 용감한 남자였다. 그는 그 집단의 보물을 보관했고, 공격 받을 경우에 씨족{氏族} 전체가 그의 집을 방어하곤 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의 자본과 집단의 재산이 곧 군대 조직을 조성하게 했다. 처음에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조치들이 고안됐지만, 나중에는 이웃 부족들의 토지와 재산을 탈취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군대 조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자본 축적을 발생시킨 근본 충동은 다음과 같았다:

1. 굶주림 -- 예지력과 관련된. 양식의 절약과 저장은, 충분한 예지력을 가짐으로써 장래의 필요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안락함을 의미했다. 양식의 저장은 굶주림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원시 형태의 사회관행 전체 줄거리는, 사람이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시하도록 도와주려고 고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was a fish or a goat. Later the cow became a unit of barter.

69:4.6 (775.6) Modern writing originated in the early trade records; the first literature of man was a trade-promotion document, a salt advertisement. Many of the earlier wars were fought over natural deposits, such as flint, salt, and metals. The first formal tribal treaty concerned the intertribalizing of a salt deposit. These treaty spots afforded opportunity for friendly and peaceful interchange of ideas and the intermingling of various tribes.

69:4.7 (775.7) Writing progressed up through the stages of the “message stick,” knotted cords, picture writing, hieroglyphics, and wampum belts, to the early symbolic alphabets. Message sending evolved from the primitive smoke signal up through runners, animal riders, railroads, and airplanes, as well as telegraph, telephone, and wireless communication.

69:4.8 (775.8) New ideas and better methods were carried around the inhabited world by the ancient traders. Commerce, linked with adventure, led to exploration and discovery. And all of these gave birth to transportation. Commerce has been the great civilizer through promoting the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

5. THE BEGINNINGS OF CAPITAL

69:5.1 (775.9) Capital is labor applied as a renunciation of the present in favor of the future. Savings represent a form of maintenance and survival insurance. Food hoarding developed self-control and created the first problems of capital and labor. The man who had food, provided he could protect it from robbers, had a distinct advantage over the man who had no food.

69:5.2 (775.10) The early banker was the valorous man of the tribe. He held the group treasures on deposit, while the entire clan would defend his hut in event of attack. Thus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capital and group wealth immediately led to military organization. At first such precautions were designed to defend property against foreign raiders, but later on it became the custom to keep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practice by inaugurating raids on the property and wealth of neighboring tribes.

69:5.3 (776.1) The basic urges which led to the accumulation of capital were:

69:5.4 (776.2) 1. *Hunger — associated with foresight.* Food saving and preservation meant power and comfort for those who possessed sufficient foresight thus to provide for future needs. Food storage was adequate insurance against famine and disaster. And the entire body of primitive mores was really designed to help man

2.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함. 자본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압박감에도, 미래의 수요{需要}에 대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미래의 필요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자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

3. **허영심** --자기 재산 축적을 과시하고자 함. 여분의 옷은 탁월성에 대한 최고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다. 수집하는 허영심이 일찍부터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4. **지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명성을 얻으려는 열망. 상업화된 귀족 신분이 일찍부터 생겨났는데, 귀족 신분을 얻는 것은, 왕족에게 어떤 특별한 봉사를 해주는 데 달려있기도 하고, 또는 노골적으로 돈을 낸 대가{代價}로 허락되기도 했다.

5. **권력** --주인이 되려는 열망. 재산을 빌려주는 행위, 즉 이런 옛 시대에 통용된, 매 년 100퍼센트의 대부 이자율이, 노예를 만드는 수단으로 자행됐다. 돈을 빌려준 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비군으로 조직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됐다. 노예화된 종들은 아주 초기 형태의 축적된 재산이었으며, 고대에는 빚 때문에 생긴 노예 신분이 연장돼서 시체까지도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6. **죽은 자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 --보호 받으려고 사제에게 주는 사례금.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 생애로 쉽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자기 재산이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예물을 사제에게 바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제계층은 큰 부자가 됐고; 고대의 자본가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7. **성욕{性慾}** --하나 또는 여러 아내를 차지하려는 열망. 인간의 최초 거래 형태는 여자 교환이었으며; 그것은 말{馬}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앞섰다. 그러나 성적 노예의 교환은 사회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그런 거래 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종적 치욕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가족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수한 민족의 생물학적 적합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8. **여러 형태의 자아_만족**. 더러는 부{富}가 권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구하고, 더러는 재산이 안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써 얻으려고 한다. 초기 사람은 (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의 사람들도) 사치하는 데 재산을 탕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하게 만드는 것과 마약{麻藥}이 원시 종족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문명이 발달하자, 사람은 저축하도록 새롭게 자극받았으며; 새로운 욕구들이 원래의 식욕에 신속하게 덧붙여졌다. 가난을 무척 싫어하게 됐으므로, 사람이 죽게 되면 오직 부자들만 곧바로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재산을 아주 귀중히 여겼으므로, 허세부리는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이름에서 불명예를 씻어버리려고 했다.

subordinate the present to the future.

69:5.5 (776.3) 2. *Love of family* — desire to provide for their wants. Capital represents the saving of property in spite of the pressure of the wants of today in order to insure against the demands of the future. A part of this future need may have to do with one's posterity.

69:5.6 (776.4) 3. *Vanity* — longing to display one's property accumulations. Extra clothing was one of the first badges of distinction. Collection vanity early appealed to the pride of man.

69:5.7 (776.5) 4. *Position* — eagerness to buy social and political prestige. There early sprang up a commercialized nobility, admission to which depended on the performance of some special service to royalty or was granted frankly for the payment of money.

69:5.8 (776.6) 5. *Power* — the craving to be master. Treasure lending was carried on as a means of enslavement, one hundred per cent a year being the loan rate of these ancient times. The moneylenders made themselves kings by creating a standing army of debtors. Bond servants were among the earliest form of property to be accumulated, and in olden days debt slavery extended even to the control of the body after death.

69:5.9 (776.7) 6. *Fear of the ghosts of the dead* — priest fees for protection. Men early began to give death presents to the priests with a view to having their property used to facilitate their progress through the next life. The priesthoods thus became very rich; they were chief among ancient capitalists.

69:5.10 (776.8) 7. *Sex urge* — the desire to buy one or more wives. Man's first form of trading was woman exchange; it long preceded horse trading. But never did the barter in sex slaves advance society; such traffic was and is a racial disgrace, for at one and the same time i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family life and polluted the biologic fitness of superior peoples.

69:5.11 (776.9) 8. *Numerous forms of self-gratification*. Some sought wealth because it conferred power; others toiled for property because it meant ease. Early man (and some later-day ones) tended to squander his resources on luxury. Intoxicants and drugs intrigued the primitive races.

69:5.12 (776.10) As civilization developed, men acquired new incentives for saving; new wants were rapidly added to the original food hunger. Poverty became so abhorred that only the rich were supposed to go direct to heaven when they died. Property became so highly valued that to give a pretentious feast would wipe a dishonor from one's name.

재산 축적은 일찍부터 사회적 영예{榮譽}의 상징이 됐다. 어떤 부족에서는, 개인이 어느 축제일에 자기 재물을 태우거나, 동료 부족원들에게 공짜로 나눠줌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재물을 여러 해 모으기도 했다. 이런 행위가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현대인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절제하게 나눠줌으로써 흥청대고 있으며, 한편 부자들은 자선 단체와 교육 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사람의 기법은 변하지만, 이런 성향은 거의 변함없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대의 많은 부자는 자기 재물을 탐내는 사람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재물을 많이 나눠줬다는 사실을 밝혀야 공정할 것이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서, 다수의 노예를 제물로 바쳤다.

자본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가 소속된 사회 및 산업 체제를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정하지 못한 자본가들이 자본을 악용하는 것도, 자본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파기시키지는 못한다. 오늘날 세대는 자본과 발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경솔하고 이기적인 관리인들이 자본을 여러 번 오용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서, 이것을 기록한다.

6. 불과 문명의 관계

네 분야--곧 산업, 규범, 종교, 및 군사--로 구성된 원시 사회는, 불, 동물, 노예, 및 재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발생했다.

불을 피운 것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사람을 동물로부터 영원히 구분시켰으며; 근본적인 발명, 즉 발견이었다. 불은, 모든 동물이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밤에도 땅에 머물 수 있게 했다. 불은 황혼 무렵의 사교{社交}를 촉진시켰으며; 추위와 맹수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유령에 대항하는 안전책이 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열보다 빛을 밝히려고 불을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퇴보한 부족은, 밤새 불꽃이 타지 않으면 잠을 자려하지 않았다.

불은 문명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아직 불이 살아있는 숲을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서, 아무 손해 없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최초의 수단이 됐다. 한 집안의 불은 어머니 또는 딸이 보존했는데, 방심하지 않는 태도와 믿음직스런 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교육자였다. 초기의 가정은 건물을 갖추지 못했지만, 가족 화로{火爐}인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새 가정을 꾸민 아들은, 가족 화로에서 불씨를 옮겨갔다.

불을 처음 발견한 **안돈**은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다수는

69:5.13 (777.1) Accumulations of wealth early became the badge of social distinction. Individuals in certain tribes would accumulate property for years just to create an impression by burning it up on some holiday or by freely distributing it to fellow tribesmen. This made them great men. Even modern peoples revel in the lavish distribution of Christmas gifts, while rich men endow great institutions of philanthropy and learning. Man's technique varies, but his disposition remains quite unchanged.

69:5.14 (777.2) But it is only fair to record that many an ancient rich man distributed much of his fortune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killed by those who coveted his treasures. Wealthy men commonly sacrificed scores of slaves to show disdain for wealth.

69:5.15 (777.3) Though capital has tended to liberate man, it has greatly complicated his social an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abuse of capital by unfair capitalists does not destroy the fact that it is the basi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Through capital and invention the present generation enjoys a higher degree of freedom than any that ever preceded it on earth. This is placed on record as a fact and not in justification of the many misuses of capital by thoughtless and selfish custodians.

6. FIRE IN RELATION TO CIVILIZATION

69:6.1 (777.4) Primitive society with its four divisions — industrial, regulative, religious, and military — rose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fire, animals, slaves, and property.

69:6.2 (777.5) Fire building, by a single bound, forever separated man from animal; it is the basic human invention, or discovery. Fire enabled man to stay on the ground at night as all animals are afraid of it. Fire encouraged eventide social intercourse; it not only protected against cold and wild beasts but was also employed as security against ghosts. It was at first used more for light than heat; many backward tribes refuse to sleep unless a flame burns all night.

69:6.3 (777.6) Fire was a great civilizer, providing man with his first means of being altruistic without loss by enabling him to give live coals to a neighbor without depriving himself. The household fire, which was attended by the mother or eldest daughter, was the first educator, requiring watchfulness and dependability. The early home was not a building but the family gathered about the fire, the family hearth. When a son founded a new home, he carried a firebrand from the family hearth.

69:6.4 (777.7) Though Andon, the discoverer of fire, avoided treating it as an object of worship, many of

불꽃을 주물(呪物) 또는 영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쓰레기 태우기를 싫어했으므로, 청결하게 만드는 불의 효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했다. 원시인은 불을 두려워했으며,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냄새가 적게 나도록 하려고 항상 애썼다. 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 속에 침을 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사람 사이를 결코 지나가지 않았다. 초기 인류는 심지어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황철광과 부싯돌도 신성하게 여겼다.

불을 꺼뜨리는 것은 죄였으며;집이 불에 타면 그대로 뒀다. 신전(神殿)과 제단의 불은 신성시됐고, 해마다 또는 어떤 재난이 있을 후에 새로 불을 붙이는 것이 관례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을 절대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여자들이 사제로 선택됐는데, 그들이 집에 있는 불을 보호하기 때문이었다.

불이 어떻게 해서 신들로부터 내려왔는지를 기록한 초기 신화는, 번갯불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시작됐다.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이 관념이, 불을 숭배하도록 직접 작용했고, 불에 대한 숭배는 “불을 통과하는” 풍습을 낳았으며, 그 풍습은 모세 시대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속한다. 불에 관한 신화는, 초기 시대에 엄청난 속박의 도구였고, 파시교도의 기호 체계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불로 말미암아 조리법이 생겼고, “생식(生食)”은 조롱하는 말이 됐다. 그리고 양식을 익힘으로 인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음식 소화로 소모되는 것을 줄였고, 그리하여 초기 사람은 사회 문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됐으며, 한편 목축업은, 양식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써,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불이 금속 가공의 문을 열었고, 나중에는 증기력(蒸氣力)을 발견하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전기를 이용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동물의 활용

처음에는, 동물계 전체가 사람의 적(敵)이었고,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동물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동물을 길들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동물 길들이기는 우연히 시작됐다. 미개인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이 들소를 사냥했던 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냥했다. 떼를 포위함으로써 그 동물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양식에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죽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울타리가 세워졌고, 떼 전체를 사로잡곤 했다.

어떤 동물은 길들이기가 용이했지만, 많은 동물은 코끼리처럼 속박된 상태에서는 새끼를 낳지

his descendants regarded the flame as a fetish or as a spirit. They failed to reap the sanitary benefits of fire because they would not burn refuse. Primitive man feared fire and always sought to keep it in good humor, hence the sprinkling of incense.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the ancients spit in a fire, nor would they ever pass between anyone and a burning fire. Even the iron pyrites and flints used in striking fire were held sacred by early mankind.

69:6.5 (777.8) It was a sin to extinguish a flame; if a hut caught fire, it was allowed to burn. The fires of the temples and shrines were sacred and were never permitted to go out except that it was the custom to kindle new flames annually or after some calamity. Women were selected as priests because they were custodians of the home fires.

69:6.6 (778.1) The early myths about how fire came down from the gods grew out of the observations of fire caused by lightning. These ideas of supernatural origin led directly to fire worship, and fire worship led to the custom of “passing through fire,” a practice carried on up to the times of Moses. And there still persists the idea of passing through fire after death. The fire myth was a great bond in early times and still persists in the symbolism of the Parsees.

69:6.7 (778.2) Fire led to cooking, and “raw eaters” became a term of derision. And cooking lessened the expenditure of vital energy necessary for the digestion of food and so left early man some strength for social culture, while animal husbandry, by reducing the effort necessary to secure food, provided time for social activities.

69:6.8 (778.3)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fire opened the doors to metalwork and led to the subsequent discovery of steam power and the present-day uses of electricity.

7. THE UTILIZATION OF ANIMALS

69:7.1 (778.4) To start with, the entire animal world was man's enemy; human beings had to learn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beasts. First, man ate the animals but later learned to domesticate and make them serve him.

69:7.2 (778.5)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came about accidentally. The savage would hunt herds much as the American Indians hunted the bison. By surrounding the herd they could keep control of the animals, thus being able to kill them as they were required for food. Later, corrals were constructed, and entire herds would be captured.

69:7.3 (778.6) It was easy to tame some animals, but like the elephant, many of them would not

않으려고 했다. 더 후일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포획 된 상태에서도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하여 동물 길들이기는, 골라서 번식시키는,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크게 진보된 기술로 인해 촉진됐다.

개는 처음으로 길들여진 동물이었고, 개를 유순하게 만드는 어려운 체험은, 어떤 개가 하루 종일 사냥꾼 주변을 맴돌다가 그를 따라서 정말로 집에까지 오게 됐을 때 시작됐다. 개는 오랫동안, 양식, 사냥, 운반 수단, 그리고 동무관계로 활용됐다. 처음에는 개들이 길게 뿡뿡이 소리 냈지만, 나중에는 짖는 법을 배우게 됐다. 개의 날카로운 냄새 감각 때문에, 개가 영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으며, 개를 숭배하는 종파가 생기기도 했다. 감시하는 개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씨족 전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그 후에는 눈에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영(靈)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데 감시견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개가 짖을 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길게 울부짖을 때에는 영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개가 밤에 길게 울부짖는 것은 죽음의 전조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남자가 사냥하던 시절에는, 여자에게 제법 친절했지만, 동물을 길들인 후에는, **캘리개스차**가 일으킨 혼란이 가중돼서, 많은 부족이 자기네 여자들을 고약스럽게 취급했다. 그들은 대체로 동물을 다루듯이 여자를 대했다. 남자가 여자를 무자비하게 대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운데 하나다.

8. 문명의 한 요소로서의 노예제도

원시인은 망설임 없이 동료들을 노예로 삼았다. 여자가 최초의 노예, 즉 가정의 노예였다. 목축하는 남자는 여자를 노예화해서 자기보다 열등한 성(性)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종류의 성 노예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곧 생겨났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 포로는 노예가 될 운명이었다. 더 먼 옛날에는, 포로를 잡아먹거나, 죽도록 고문하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영들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다. 노예제도는 대량학살이나 식인(食人)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것이었다.

노예제도는 전쟁 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한 단계 발전한 것이었다. **아이** 성(城) 북병들이,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하면서, 정복자로서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왕만 살려뒀던 것은, 문명인으로 여겨지는 민족들까지도 야만적 대량학살을 일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바산**의 왕 **옥**을 습격한 것은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히브리인**은 적을 “완전히 섬멸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남

reproduce in captivity. Still further on it was discovered that certain species of animals would submit to man's presence, and that they would reproduce in captivit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was thus promoted by selective breeding, an art which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the days of Dalamatia.

69:7.4 (778.7) The dog was the first animal to be domesticated, and the difficult experience of taming it began when a certain dog, after following a hunter around all day, actually went home with him. For ages dogs were used for food, hunting, transportation, and companionship. At first dogs only howled, but later on they learned to bark. The dog's keen sense of smell led to the notion it could see spirits, and thus arose the dog-fetish cults. The employment of watchdogs made it first possible for the whole clan to sleep at night. It then became the custom to employ watchdogs to protect the home against spirits as well as material enemies. When the dog barked, man or beast approached, but when the dog howled, spirits were near. Even now many still believe that a dog's howling at night betokens death.

69:7.5 (778.8) When man was a hunter, he was fairly kind to woman, but after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coupled with the Caligastia confusion, many tribes shamefully treated their women. They treated them altogether too much as they treated their animals. Man's brutal treatment of woman constitutes one of the darkest chapters of human history.

8. SLAVERY AS A FACTOR IN CIVILIZATION

69:8.1 (778.9) Primitive man never hesitated to enslave his fellows. Woman was the first slave, a family slave. Pastoral man enslaved woman as his inferior sex partner. This sort of sex slavery grew directly out of man's decreased dependence upon woman.

69:8.2 (789.1) Not long ago enslavement was the lot of those military captives who refused to accept the conqueror's religion. In earlier times captives were either eaten, tortured to death, set to fighting each other, sacrificed to spirits, or enslaved. Slavery was a great advancement over massacre and cannibalism.

69:8.3 (789.2) Enslavement was a forward step in the merciful treatment of war captives. The ambush of Ai, with the wholesale slaughter of men, women, and children, only the king being saved to gratify the conqueror's vanity, is a faithful picture of the barbaric slaughter practiced by even supposedly civilized peoples. The raid upon Og, the king of Bashan, was equally brutal and effective. The Hebrews “utterly destroyed” their enemies, taking all their property as spoils. They put all cities under

자가 멸절되는” 고통 대신, 모든 도시가 조공{租貢}을 바치게 했다. 그러나 당대의 부족들 가운데 다수는 부족 이기주의가 훨씬 덜했고, 유능한 포로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관례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아메리카 홍색인처럼, 사냥꾼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 그들은 포로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다. 목축하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노예제도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노동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날 때 목자{牧者}들은,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만 노예 삼는 풍습이 있었다. **모세**의 법전{法典}은, 이 여자 포로를 아내 삼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브리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되지 못한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그것은 문명화에서 적어도 한 걸음 진보였다. **히브리인**의 사회 규범은, 미숙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보다 훨씬 앞섰다.

목자는 최초의 자본가였으며;그들의 가축 떼는 자본금이었고, 이자로--곧 자연 증가분으로--생활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을 노예나 여자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남자 포로를 거느렸고 포로들로 하여금 땅을 일구도록 시켰다. 이것이 농노{農奴}--곧 토지에 부속된 사람--의 초기 기원이다. **아프리카인**은 땅을 일구는 방법을 쉽게 배웠고;그리하여 그들은 탁월한 노예 인종이 됐다.

노예제도는 인간 문명의 연결고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리였다. 그것은 혼돈과 게으름의 상태에서 질서와 문명화된 활동으로 옮겨가는 다리였으며;진보가 느리고 나태한 민족들에게 일하도록 강요했고, 그리하여 그들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사회를 진흥시키도록 재산과 여가 시간을 제공했다.

노예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시 사회의 통제 장치를 창안하도록 강요했으며;정부가 시작되게 했다. 노예제도는 강력한 규칙을 필요로 했고, 봉건 군주들이 노예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중세시대**에 거의 사라졌다. 고대의 뒤떨어진 부족들은, 오늘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처럼,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었다.

사실, 노예제도가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산업을 배운 것은 억압이라는 학교에서였다. 노예들은 상류 사회가 생기는 것을 아주 마지못해서 도왔지만, 결국 그 사회의 축복을 공유하게 됐다. 노예제도는 문화 체제와 사회 진보를 이룩함에도, 모르는 사이에 곧, 모든 파괴적 사회 병폐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되어, 사회를 내부에서 공격한다.

현대의 기계 발명이 노예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노예제도는, 일부다처제처럼,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숫자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며;점진적으로 해방될 때 문제가 적게 발생

tribute on pain of the “destruction of all males.” But many of the contemporary tribes, those having less tribal egotism, had long since begun to practice the adoption of superior captives.

69:8.4 (789.3) The hunter, like the American red man, did not enslave. He either adopted or killed his captives. Slavery was not prevalent among the pastoral peoples, for they needed few laborers. In war the herders made a practice of killing all men captives and taking as slaves only the women and children. The Mosaic code contained specific directions for making wives of these women captives. If not satisfactory, they could be sent away, but the Hebrews were not allowed to sell such rejected consorts as slaves — that was at least one advance in civilization. Though the social standards of the Hebrews were crude, they were far above those of the surrounding tribes.

69:8.5 (789.4) The herders were the first capitalists; their herds represented capital, and they lived on the interest — the natural increase. And they were disinclined to trust this wealth to the keeping of either slaves or women. But later on they took male prisoners and forced them to cultivate the soil. This is the early origin of serfdom — man attached to the land. The Africans could easily be taught to till the soil; hence they became the great slave race.

69:8.6 (789.5) Slavery was an indispensable link in the chain of human civilization. It was the bridge over which society passed from chaos and indolence to order and civilized activities; it compelled backward and lazy peoples to work and thus provide wealth and leisure for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ir superiors.

69:8.7 (789.6) The institution of slavery compelled man to invent the regulative mechanism of primitive society; it gave origin to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Slavery demands strong regulation and during the European Middle Ages virtually disappeared because the feudal lords could not control the slaves. The backward tribes of ancient times, like the native Australians of today, never had slaves.

69:8.8 (789.7) True, slavery was oppressive, but it was in the schools of oppression that man learned industry. Eventually the slaves shared the blessings of a higher society which they had so unwillingly helped create. Slavery creates an organization of culture and social achievement but soon insidiously attacks society internally as the gravest of all destructive social maladies.

69:8.9 (789.8) Modern mechanical invention rendered the slave obsolete. Slavery, like polygamy, is passing because it does not pay. But it has always proved disastrous suddenly to liberate great numbers of slaves; less trouble ensues when they

된다.

오늘날, 사람은 사회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야심 때문에 빚의 노예로 전락한다. 무심결에 형성된 노예제도가, 새롭고 개선된 형태의 변경된 산업 노동을 형성했다.

보편적 자유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게으름이 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강제로라도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노예는 거의 사라졌고; 길들여진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문명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불에--곧 무기물{無機物}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람은 불, 동물, 및 노예제도를 거쳐서 미개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났으며; 오늘날에는 노예의 도움과 동물의 보조가 폐기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연{自然}이라는 본질적인 창고에서, 부와 권력의 새로운 비결과 출처를 억지로 뺏으려고 애쓴다.

9. 사유재산

원시 사회는 사실상 공동사회였지만, 원시인은 현대 공산주의 학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이런 초기 시대의 공산체제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 정책이 아니었으며; 간단하고 실용적인 자동 조절이었다. 공산체제가 빈곤한 상태와 결핍을 방지했으며; 고대의 이 부족들은 구걸이나 매춘을 거의 알지 못했다.

원시 공산체제는, 사람의 수준을 유별나게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부함을 높여주지도 않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장려했고, 산업을 억제했으며, 야망을 소멸시켰다. 공산체제는 원시 사회의 성장에 필수적 발판이기는 했지만, 강력한 네 가지 인간 성향에 거슬렸으므로, 더 높은 사회체제로 진화하도록 길을 내주게 됐다:

1. 가족. 사람은 재산 축적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초기 공산 사회에서 사람의 자산은 즉시 소비되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무리들에게 분배됐다. 증여되는 재산은 없었다--곧 증여세{贈與稅}가 100퍼센트였다. 후대에 자본을 축적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사회관행은, 뚜렷한 사회적 진보였다. 그리고 자본을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지나친 남용이 뒤따랐음에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종교적 성향. 원시인은 저 세상의 생애를 시작할 때를 위한 토대로서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기도 했다. 이런 동기는, 사람을 매장할 때 그의 개인 소장품을 함께 묻는 풍습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설명한다. 옛 사람들은 죽은 후에

are gradually emancipated.

69:8.10 (780.1) Today, men are not social slaves, but thousands allow ambition to enslave them to debt. Involuntary slavery has given way to a new and improved form of modified industrial servitude.

69:8.11 (780.2) While the ideal of society is universal freedom, idleness should never be tolerated. All able-bodied persons should be compelled to do at least a self-sustaining amount of work.

69:8.12 (780.3) Modern society is in reverse. Slavery has nearly disappeared; domesticated animals are passing. Civilization is reaching back to fire — the inorganic world — for power. Man came up from savagery by way of fire, animals, and slavery; today he reaches back, discarding the help of slaves and the assistance of animals, while he seeks to wrest new secrets and sources of wealth and power from the elemental storehouse of nature.

9. PRIVATE PROPERTY

69:9.1 (780.4) While primitive society was virtually communal, primitive man did not adhere to the modern doctrines of communism. The communism of these early times was not a mere theory or social doctrine; it was a simple and practical automatic adjustment. Communism prevented pauperism and want; begging and prostitution were almost unknown among these ancient tribes.

69:9.2 (780.5) Primitive communism did not especially level men down, nor did it exalt mediocrity, but it did put a premium on inactivity and idleness, and it did stifle industry and destroy ambition. Communism was indispensable scaffolding in the growth of primitive society, but it gave way to the evolution of a higher social order because it ran counter to four strong human proclivities:

69:9.3 (780.6) 1. *The family.* Man not only craves to accumulate property; he desires to bequeath his capital goods to his progeny. But in early communal society a man's capital was either immediately consumed or distributed among the group at his death. There was no inheritance of property — the inheritance tax was one hundred per cent. The later capital-accumulation and property-inheritance mores were a distinct social advance. And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subsequent gross abuses attendant upon the misuse of capital.

69:9.4 (780.7) 2. *Religious tendencies.* Primitive man also wanted to save up property as a nucleus for starting life in the next existence. This motive explains why it was so long the custom to bury a man's personal belongings with him. The ancients

부자들만 기쁨과 위엄을 갖춘 상태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 특히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선포했다.

3. **자유와 여가 시간을 갖고 싶은 욕망.** 사회가 진화하던 초기 시대에, 개인의 소득을 집단이 나누는 것은 실제로 노예제도의 한 형태였으며; 일하는 자는 게으른 자에게 노예가 됐다. 공산체제가 자멸하게 된 약점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절약하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로 하여금(곧 절약하는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도록 의존하고 있다. 자선이 없는 사람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기를 여전히 바란다.

4. **안전과 권력에 대한 열망.** 공산체제는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개인들의 속이는 버릇 때문에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들은 자기 부족(部族) 가운데 무기력한 게으름뱅이들에게 예측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저축했고; 원시적 불안감 때문에 자본을 공개적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했으며; 왕은 부자의 재산을 압수하려고 어떤 혐의를 반드시 꾸며냈으며, 부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공공복지를 위해서, 또는 왕에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바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주 먼 옛날에 여자는 그 공동체의 재산이었으며,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했다. 초기에는 족장이 모든 땅을 소유했고, 모든 여자의 주인이었으며; 결혼은 부족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공산체제가 지나가자, 여자는 개인별로 소유됐고, 차츰 아버지가 가정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리하여 가정이 시작됐고, 널리 행해지던 일부다처제 관습은 점차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서 여자_노예제도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의 설립, 자녀 양육, 공동 문화, 그리고 자아_수양이라는 절묘한 계획 사업에서, 노예삼지_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비길 데 없이 이상적인 결합이다.)

처음에는, 연장과 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소유였다. 개인 재산은 직접 손을 댄 모든 물건으로 먼저 이뤄졌다. 낯선 사람이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 그 그릇은 그때부터 그의 소유가 됐다.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린 장소는 어디든지, 상처 난 사람 또는 집단의 재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은 원래 높이 평가됐는데, 그것이 소유주의 인격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미신을 토대로 해서 재산에 대한 정직성이 안전하게 형성됐으므로, 개인의 소유물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집단 내에서는 훔치는 일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believed that only the rich survived death with any immediate pleasure and dignity. The teachers of revealed religion, more especially the Christian teachers, were the first to proclaim that the poor could have salvation on equal terms with the rich.

69:9.5 (780.8) 3. *The desire for liberty and leisure.* In the earlier days of social evolution the apportionment of individual earnings among the group was virtually a form of slavery; the worker was made slave to the idler. This was the suicidal weakness of communism: The improvident habitually lived off the thrifty. Even in modern times the improvident depend on the state (thrifty taxpayers) to take care of them. Those who have no capital still expect those who have to feed them.

69:9.6 (780.9) 4. *The urge for security and power.* Communism was finally destroyed by the deceptive practices of progressive and successful individuals who resorted to diverse subterfuges in an effort to escape enslavement to the shiftless idlers of their tribes. But at first all hoarding was secret; primitive insecurity prevented the outward accumulation of capital. And even at a later time it was most dangerous to amass too much wealth; the king would be sure to trump up some charge for confiscating a rich man's property, and when a wealthy man died, the funeral was held up until the family donated a large sum to public welfare or to the king, an inheritance tax.

69:9.7 (781.1) In earliest times women were the property of the community, and the mother dominated the family. The early chiefs owned all the land and were proprietors of all the women; marriage required the consent of the tribal ruler. With the passing of communism, women were held individually, and the father gradually assumed domestic control. Thus the home had its beginning, and the prevailing polygamous customs were gradually displaced by monogamy. (Polygamy is the survival of the female-slavery element in marriage. Monogamy is the slave-free ideal of the matchless association of one man and one woman in the exquisite enterprise of home building, offspring rearing, mutual culture, and self-improvement.)

69:9.8 (781.2) At first, all property, including tools and weapons, was the common possession of the tribe. Private property first consisted of all things personally touched. If a stranger drank from a cup, the cup was henceforth his. Next, any place where blood was shed became the property of the injured person or group.

69:9.9 (781.3) Private property was thus originally respected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charged with some part of the owner's personality. Property honesty rested safely on this type of superstition; no police were needed to guard personal belongings. There was no stealing within

다른 부족의 재물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재산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개인의 물건을 불에 태웠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함께 묻었으며, 후대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부족에게 물려졌다.

장신구 유형의 개인 소지품은, 부적{符籙}을 몸에 지닌 것에서 비롯됐다. 허영심과 함께 유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기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적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게 됐고, 그런 소유물은 생활필수품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다.

잠자는 공간은 사람의 초기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나중에는 부족의 추장이 집터를 결정했고, 추장은 그 집단을 위해서 모든 부동산을 관리했다. 이윽고 불 피우는 자리가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더 후기에는 우물이 주변 땅에 대한 재산권을 성립시켰다.

물웅덩이와 우물은 최초의 개인 소유지에 속했다. 주물승배 풍습 전체가, 물웅덩이, 우물, 나무, 농작물, 그리고 꿀을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주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후에는, 개인에게 소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 법규가 발달했다. 그러나 수렵법{狩獵法}, 즉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법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아메리카** 홍색인은 땅의 개인 소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백색인의 관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개인 사유지는 일찍부터 가족 표지{標識}로 표시됐고, 이것은 가족 문장{紋章}의 호시{嚆矢}가 됐다. 부동산 역시 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체가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마술적 금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금기의 소유주는 “사체의 권리중서”를 가졌다고 말하게 됐다. **히브리인**은 이런 가족 경계표{境界標}를 무척 존중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돌로 만든 이런 표지 위에는 사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새겨질 때에는 나무조차 사유 재산이 됐다.

초기 시대에는 오직 농작물만 사유{私有}됐지만, 연속해서 거둬들이는 농작물에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그리하여 농업은 개인 토지 소유권의 기원이 됐다. 각 개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땅의 소유권을 가졌고, 죽은 후에는 부족의 소유로 되돌려졌다. 땅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수여된 가장 최초의 경우는 무덤이었다--곧 가족 공동묘지였다. 후대에 이르러서, 땅은 담을 세운 사람에게 소속됐다. 그러나 성읍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땅을 공동 목초지로 예비해 뒀으며; 이런 “공동 토지”는 초기 형태의 공동 소유권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예다.

결국,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사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게 됐다. 땅 임자는, 이 소유권을 보장받으면서, 땅을 빌려준 값을 받을 수 있었고, 땅은 소득의 근원--자본--이 됐다. 마침내, 판매, 이전, 저당, 및 담보소유권 상실 등과 함께, 정당하게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됐다.

the group, though men did not hesitate to appropriate the goods of other tribes. Property relations did not end with death; early, personal effects were burned, then buried with the dead, and later, inherited by the surviving family or by the tribe.

69:9.10 (781.4) The ornamental type of personal effects originated in the wearing of charms. Vanity plus ghost fear led early man to resist all attempts to relieve him of his favorite charms, such property being valued above necessities.

69:9.11 (781.5) Sleeping space was one of man's earliest properties. Later, homesites were assigned by the tribal chiefs, who held all real estate in trust for the group. Presently a fire site conferred ownership; and still later, a well constituted title to the adjacent land.

69:9.12 (781.6) Water holes and wells were among the first private possessions. The whole fetish practice was utilized to guard water holes, wells, trees, crops, and honey. Following the loss of faith in the fetish, laws were evolved to protect private belongings. But game laws, the right to hunt, long preceded land laws. The American red man never understood private ownership of land; he could not comprehend the white man's view.

69:9.13 (781.7) Private property was early marked by family insignia, and this is the early origin of family crests. Real estate could also be put under the watchcare of spirits. The priests would “consecrate” a piece of land, and it would then rest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agic taboos erected thereon. Owners thereof were said to have a “priest's title.” The Hebrews had great respect for these family landmarks: “Cursed be he who removes his neighbor's landmark.” These stone markers bore the priest's initials. Even trees, when initialed, became private property.

69:9.14 (782.1) In early days only the crops were private, but successive crops conferred title; agriculture was thus the genesis of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Individuals were first given only a life tenureship; at death land reverted to the tribe. The very first land titles granted by tribes to individuals were graves — family burying grounds. In later times land belonged to those who fenced it. But the cities always reserved certain lands for public pasturage and for use in case of siege; these “commons” represent the survival of the earlier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69:9.15 (782.2) Eventually the state assigned property to the individual, reserving the right of taxation. Having made secure their titles, landlords could collect rents, and land became a source of income — capital. Finally land became truly negotiable, with sales, transfers, mortgages, and foreclosures.

사유 재산권이 자유를 증대시켰고, 안정성을 증진시켰지만; 땅의 사유 재산권은 오직 공동 사회의 통제와 지시가 실패한 후에만 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곧 그 뒤를 이어서, 노예, 농노{農奴}, 그리고 땅 없는 계층이 연속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개선된 기계류가, 일에 노예 된 상태에서 인간을 점차 벗어나게 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순전히 사회적이다. 그러나 현대인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정부, 법, 질서, 시민권, 사회적 자유, 관례, 평화, 및 행복 등 전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돼 왔다.

현재의 사회 체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곧 신성하지도 신성시되지도 않지만--, 인류는 변화를 서서히 이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지닌 체계는, 너희 조상이 알았던 어떤 체계보다 대단히 월등하다. 너희가 사회 질서의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라. 너희의 조상이 폐기시켰던 상투적인 방식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라! 진화가 계속되도록 노력해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69:9.16 (782.3) Private ownership brought increased liberty and enhanced stability; but private ownership of land was given social sanction only after communal control and direction had failed, and it was soon followed by a succession of slaves, serfs, and landless classes. But improved machinery is gradually setting men free from slavish toil.

69:9.17 (782.4) The right to property is not absolute; it is purely social. But all government, law, order, civil rights, social liberties, conventions, peace, and happiness, as they are enjoyed by modern peoples, have grown up around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69:9.18 (782.5) The present social order is not necessarily right — not divine or sacred — but mankind will do well to move slowly in making changes. That which you have is vastly better than any system known to your ancestors. Make certain that when you change the social order you change for the better. Do not be persuaded to experiment with the discarded formulas of your forefathers. Go forward, not backward! Let evolution proceed! Do not take a backward step.

69:9.19 (782.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0편. 인간 정부의 진화

⇨ 069

유란시아 책

07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70편
인간 정부의 진화

섹션

소개

1. 전쟁의 기원
2. 전쟁의 사회적 가치
3. 초기의 인간 연합체
4. 씨족과 부족
5. 정부의 출현
6. 군주제 정부
7. 원시 동호회와 비밀 공동체
8. 사회 계층
9. 인간의 권리
10. 응보의 진화
11. 법률과 법정
12. 시민사회 권위의 배분

PAPER 70
THE EVOLUTION OF HUMAN
GOVERNM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enesis of War
2. The Social Value of War
3. Early Human Associations
4. Clans and Tribes
5.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6. Monarchial Government
7. Primitive Clubs and Secret Societies
8. Social Classes
9. Human Rights
10. Evolution of Justice
11. Laws and Courts
12. Allocation of Civil Authority

소개

사람은, 생계유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자마자, 인간의 접촉을 규제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했다. 산업의 발달은, 법, 질서, 및 사회적 조정을 요구했고, 재산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정부{政府}가 필요하게 됐다.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적개심이 선천적이며; 사회를 규제하는 어떤 체계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의 조직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연합은 다소간의 통제하는 권위를 내포한다. 정부는, 부족, 씨족, 가족, 및 개인의 대립 관계가 조정되기를 강요한다.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발달한 것이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한다. 정부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전통이 된다. 무정부 상태는 고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부, 즉 상대적인

INTRODUCTION

70:0.1 (783.1) NO SOONER had man partially solved the problem of making a living than he wa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regulating human contact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demanded law, order, and social adjustment; private property necessitated government.

70:0.2 (783.2) On an evolutionary world, antagonisms are natural; peace is secured only by some sort of social regulative system. Social regulation is inseparable from social organization; association implies some controlling authority. Government compels the co-ordination of the antagonisms of the tribes, clans, families, and individuals.

70:0.3 (783.3) Government is an unconscious development; it evolves by trial and error. It does have survival value; therefore it becomes traditional. Anarchy augmented misery; therefore

법과 질서가 서서히 발생했거나 발생되고 있다. 살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강제적 요구는, 문명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글자 그대로 인류를 내몰았다.

1. 전쟁의 기원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스런 형편과 유산이며, 평화는 문명의 발전 정도를 재는 사회의 척도다. 진보하는 인종들이 부분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전에,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의심이 많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好戰的)이었다. 폭력은 자연 법칙이고, 적개심은 자연인의 자동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바로 이런 활동을 집단으로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명의 구조가 사회 발전에 따른 혼란에 시달릴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생기는 자극(刺激)을 폭력으로 조정하려는, 이런 초기 방법으로 반드시 역행하는데, 즉시 파멸을 초래한다.

전쟁은 오해와 자극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문명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 평화가 따라온다. **상익** 인종은, 후대의 타락한 **아담족속** 및 **노드족속**과 함께, 모두 호전적이었다. **안돈족속**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은 그 규범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으며; 관습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난폭한 적개심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안돈은 자식들에게, 각자 저주하면서 막대기로 나무를 때리게 해서 다툼을 진정시키도록 가르쳤으며; 막대기가 먼저 부러지는 쪽이 승자였다. 후대의 **안돈족속**은, 다투는 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희롱하고 비웃게 했고,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박수갈채로 승리자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다툼을 진정시키곤 했다.

그러나 사회가 평화로운 기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호전적 풍습을 제재할 정도로 훨씬 더 진화하기까지, 전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조직됨을 의미한다.

사회의 집단화(集團化)가 출현하면서, 개인의 노여움은 집단의 감정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이것은 부족 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대신, 부족 내부의 평온을 증진시켰다. 그리하여 먼저 집단 내부, 즉 부족이 평화를 누렸고, 그들은 언제나, 외부 집단, 즉 이방인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일찍부터 사람은 이방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족장들은 불화를 해결하고 싶을 때, 부족

government, comparative law and order, slowly emerged or is emerging. The coercive demands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literally drove the human race along the progressive road to civilization.

1. THE GENESIS OF WAR

70:1.1 (783.4) War is the natural state and heritage of evolving man; peace is the social yardstick measuring civilization's advancement. Before the partial socialization of the advancing races man was exceedingly individualistic, extremely suspicious, and unbelievably quarrelsome. Violence is the law of nature, hostility the automatic reaction of the children of nature, while war is but these same activities carried on collectively. And wherever and whenever the fabric of civilization becomes stressed by the complications of society's advancement, there is always an immediate and ruinous reversion to these early methods of violent adjustment of the irritations of human interassociations.

70:1.2 (783.5) War is an animalistic reaction to misunderstandings and irritations; peace attends upon the civilized solution of all such problems and difficulties. The Sangik races, together with the later deteriorated Adamites and Nodites, were all belligerent. The Andonites were early taught the golden rule, and, even today, their Eskimo descendants live very much by that code; custom is strong among them, and they are fairly free from violent antagonisms.

70:1.3 (783.6) Andon taught his children to settle disputes by each beating a tree with a stick, meanwhile cursing the tree; the one whose stick broke first was the victor. The later Andonites used to settle disputes by holding a public show at which the disputants made fun of and ridiculed each other, while the audience decided the winner by its applause.

70:1.4 (783.7) But there could be no such phenomenon as war until society had evolved sufficiently far to actually experience periods of peace and to sanction warlike practices. The very concept of war implies some degree of organization.

70:1.5 (784.1) With the emergence of social groupings, individual irritations began to be submerged in the group feelings, and this promoted intratribal tranquillity but at the expense of intertribal peace. Peace was thus first enjoyed by the in-group, or tribe, who always disliked and hated the out-group, foreigners. Early man regarded it a virtue to shed alien blood.

70:1.6 (784.2) But even this did not work at first. When the early chiefs would try to iron out

끼리 투석전{投石戰}을 하도록,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종종 발견했다. 그 씨족은 두 무리로 나뉘어 하루 종일 싸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런 싸움을 정말로 즐겼다.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이고, 모든 동물은 호전적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굶주림**, 양식을 강탈하도록 만들. 땅의 부족{不足}은 항상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초기에 평화롭던 부족{部族}들이 이런 투쟁 와중에 실제로 멸종됐다.

2. **여자의 부족** --가사를 돌보는 인력{人力}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는 것은 항상 전쟁을 일으켰다.

3. **허영심** --부족의 용맹성을 과시하려는 욕망. 우수한 집단은 열등한 민족들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다.

4. **노예** --노동자 직급을 확보할 필요성.

5. **복수**는, 자기 부족의 동료를 이웃 부족이 죽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다. 머리 하나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 애곡{哀哭}했다. 복수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6. **오락** --이런 초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오락처럼 여겼다. 전쟁을 일으킬만한 그럴듯하고 충분한 구실이 없으면,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인접한 부족들은 가짜 전쟁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일을 정해 약탈하는 식으로, 다소 친근감을 갖는 전투를 벌이곤 했다.

7. **종교** --개종시키고자 하는 욕구. 원시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정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야 종교가 전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초기 사회계층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군사력{軍事力}과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평화 운동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옛 부족들은, 자기 신{神}이 명령하는 대로, 즉 그들의 족장 또는 주술사{呪術師}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미디안족속**을 침략한 것에 대한 기록은, 고대의 부족 간 전쟁이 지독하게 무자비했음을 전형적으로 설명하며, 모든 남자를 학살했고, 나중에는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했던 이 습격은, 20만 년 전 어느 부족 추장이 세운 사회관행에 경의를 표했음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주**{主}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misunderstandings, they often found it necessary, at least once a year, to permit the tribal stone fights. The clan would divide up into two groups and engage in an all-day battle. And this for no other reason than just the fun of it; they really enjoyed fighting.

70:1.7 (784.3) Warfare persists because man is human, evolved from an animal, and all animals are bellicose. Among the early causes of war were:

70:1.8 (784.4) 1. *Hunger*, which led to food raids. Scarcity of land has always brought on war, and during these struggles the early peace tribes were practically exterminated.

70:1.9 (784.5) 2. *Woman scarcity* — an attempt to relieve a shortage of domestic help. Woman stealing has always caused war.

70:1.10 (784.6) 3. *Vanity* — the desire to exhibit tribal prowess. Superior groups would fight to impose their mode of life upon inferior peoples.

70:1.11 (784.7) 4. *Slaves* — need of recruits for the labor ranks.

70:1.12 (784.8) 5. *Revenge* was the motive for war when one tribe believed that a neighboring tribe had caused the death of a fellow tribesman. Mourning was continued until a head was brought home. The war for vengeance was in good standing right on down to comparatively modern times.

70:1.13 (784.9) 6. *Recreation* — war was looked upon as recreation by the young men of these early times. If no good and sufficient pretext for war arose, when peace became oppressive, neighboring tribes were accustomed to go out in semifriendly combat to engage in a foray as a holiday, to enjoy a sham battle.

70:1.14 (784.10) 7. *Religion* — the desire to make converts to the cult. The primitive religions all sanctioned war. Only in recent times has religion begun to frown upon war. The early priesthoods were, unfortunately, usually allied with the military power. One of the great peace moves of the ages has been the attempt to separate church and state.

70:1.15 (784.11) Always these olden tribes made war at the bidding of their gods, at the behest of their chiefs or medicine men. The Hebrews believed in such a “God of battles”; and the narrative of their raid on the Midianites is a typical recital of the atrocious cruelty of the ancient tribal wars; this assault, with its slaughter of all the males and the later killing of all male children and all women who were not virgins, would have done honor to the mores of a tribal chieftain of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nd all this was executed in the “name of the Lord God of Israel.”

이것은 사회의 진화에 대한--곧 인종 문제에 대한 자연스런 해결작업에 대한--이야기,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풀어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잔학성은, 책임을 자기 신{神}들에게 돌리려는 인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격**이 부추긴 것이 아니다.

군대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인류에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드보라**라는 여자가 **히브리인**을 다스릴 때에도, 바로 이런 대규모 잔학 행위가 계속됐다. 그 여자의 지휘관들은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모든 무리를 칼로 죽이되;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인종의 역사에서 아주 초기에는 독약{毒藥}을 묻힌 무기가 사용됐다. 손상시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행위가 실행됐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위해서 지불할 지참금으로, **다윗**에게 **블레셋족** 100명의 인피{人皮}를 주저함 없이 요구했다.

초기의 전쟁은 전체 부족 간 싸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부족 전체가 싸우는 대신, 두 싸움꾼이 결투를 벌였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경우처럼, 두 군대는 각자 자기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두 군인이 싸운 결과에 전부를 거는 것이 관례가 되기도 했다.

전쟁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포로 삼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전투 행위에서 제외됐고, 그 후에는 비전투원을 인정하게 됐다. 전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 계급제도와 상비군{常備軍}이 곧 개발됐다. 그런 전사{戰士}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됐고, 여자는 오래 전부터 싸움에서 제외됐지만, 언제나 군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치료했으며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전쟁을 선포하는 풍습은 큰 진보를 의미했다. 싸움 의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 공명정대함이 나타나는 전조{前兆}가 됐고, 그 뒤를 이어 “문명화된” 전쟁 규정이 차츰 개발됐다. 종교적인 장소 근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특정한 거룩한 날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관습이 됐다. 그 다음으로는 도피처의 권리가 공인됐으며; 정치적 망명자는 보호받았다.

그리하여 전쟁은, 원시인 사냥으로부터, 후대의 “문명화된” 국가 간의 약간 더 규율화된 형태로, 점차 진화했다. 그러나 증오하는 사회적 태도를 우호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은 매우 느리게 이뤄진다.

2. 전쟁의 사회적 가치

지난 시대에 있었던 격렬한 전쟁은, 1만 년이 걸려야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고, 새로운 관념을 쉽게 받아

70:1.16 (784.12) This is a narrative of the evolution of society —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problems of the races — man working out his own destiny on earth. Such atrocities are not instigated by Deity, notwithstanding the tendency of man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his gods.

70:1.17 (784.13) Military mercy has been slow in coming to mankind. Even when a woman, Deborah, ruled the Hebrews, the same wholesale cruelty persisted. Her general in his victory over the gentiles caused “all the host to fall upon the sword; there was not one left.”

70:1.18 (785.1)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the race, poisoned weapons were used. All sorts of mutilations were practiced. Saul did not hesitate to require one hundred Philistine foreskins as the dowry David should pay for his daughter Michal.

70:1.19 (785.2) Early wars were fought between tribes as a whole, but in later times, when two individuals in different tribes had a dispute, instead of both tribes fighting, the two disputants engaged in a duel. It also became a custom for two armies to stake all on the outcome of a contest between a representative chosen from each side, as in the instance of David and Goliath.

70:1.20 (785.3) The first refinement of war was the taking of prisoners. Next, women were exempted from hostilities, and then came the recognition of noncombatants. Military castes and standing armies soon developed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mbat. Such warriors were early prohibited from associating with women, and women long ago ceased to fight, though they have always fed and nursed the soldiers and urged them on to battle.

70:1.21 (785.4) The practice of declaring war represented great progress. Such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fight betokened the arrival of a sense of fairness, and this was followed by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rules of “civilized” warfare. Very early it became the custom not to fight near religious sites and, still later, not to fight on certain holy days. Next came the general recognition of the right of asylum; political fugitives received protection.

70:1.22 (785.5) Thus did warfare gradually evolve from the primitive man hunt to the somewhat more orderly system of the later-day “civilized” nations. But only slowly does the social attitude of amity displace that of enmity.

2. THE SOCIAL VALUE OF WAR

70:2.1 (785.6) In past ages a fierce war would institute social changes and facilitate the adoption of new ideas such as would not have occurred naturally in

들이도록 만들곤 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특정한 이점(利點)을 위해서 지불된 무시무시한 대가{代價}는, 그 사회가 잠정적으로 미개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었으며; 문명화된 이성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심각한 치료법이며, 매우 비싸고 가장 위험하며; 어떤 사회적 혼란을 종종 치료하지만, 환자를 죽이는 경우, 즉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속적인 국가 방어의 필요성이, 새롭고 진보된 많은 사회적 적응을 일으킨다. 오늘날 사회는, 여러 유용한 기술 혁신의 유익을 누리는데, 이것들은 처음에 전적으로 군사 목적이었고, 참은 전쟁 덕분에 비롯됐으며, 초기 형태의 군사 훈련들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나간 문명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1. 강요된 훈련, 즉 강제적 협동.
2.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함.
3. 민족주의를 조성하고 촉진시킴.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도태시킴.
5. 원시적인 평등의 망상을 해체시키고, 선택적으로 사회를 계층화시킴.

전쟁은 진화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가치를 갖지만, 노예제도처럼, 문명화가 서서히 진척됨에 따라서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옛 전쟁들은 여행과 문화 교류를 증진시켰으며; 이런 목적이 이제 현대적 수송 및 통신 방법으로 더 잘 이뤄지고 있다. 옛 전쟁은 국가를 강화시켰지만, 현대의 투쟁은 개화(開化)된 문화를 붕괴시켰다. 고대의 전쟁은, 열등한 민족들이 멸절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현대 전투의 최종 결과는, 가장 우수한 인간 혈통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초기의 전쟁은 조직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이것은 이제 현대 산업의 목표가 됐다. 지난 시대 동안, 전쟁은 문명을 앞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사회 효소(酵素)였으며; 이제 야망과 발명이 이런 결과를 더 잘 달성한다. 고대의 전쟁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했지만, 현대인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쟁은 과거에 가치 있는 많은 목적을 만족시켰지만, 즉 문명 건설에서 필요 불가결한 발판이 됐지만, 곧 문화적 파산을 가져오게 한다--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따르는 비참한 손실에 비례하는 이익을, 어떤 면으로도 사회에 배당 할 수 없다.

의사들은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때 믿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대부분의 질환을 위한 더 나은 치료법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 나라들의 재난을 고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ten thousand years. The terrible price paid for these certain war advantages was that society was temporarily thrown back into savagery; civilized reason had to abdicate. War is strong medicine, very costly and most dangerous; while often curative of certain social disorders, it sometimes kills the patient, destroys the society.

70:2.2 (785.7) The constant necessity for national defense creates many new and advanced social adjustments. Society, today, enjoys the benefit of a long list of useful innovations which were at first wholly military and is even indebted to war for the dance, one of the early forms of which was a military drill.

70:2.3 (785.8) War has had a social value to past civilizations because it:

70:2.4 (785.9) 1. Imposed discipline, enforced co-operation.

70:2.5 (785.10) 2. Put a premium on fortitude and courage.

70:2.6 (785.11) 3. Fostered and solidified nationalism.

70:2.7 (785.12) 4. Destroyed weak and unfit peoples.

70:2.8 (785.13) 5. Dissolved the illusion of primitive equality and selectively stratified society.

70:2.9 (785.14) War has had a certain evolutionary and selective value, but like slavery, it must sometime be abandoned as civilization slowly advances. Olden wars promoted travel and cultural intercourse; these ends are now better served by modern methods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lden wars strengthened nations, but modern struggles disrupt civilized culture. Ancient warfare resulted in the decimation of inferior peoples; the net result of modern conflict is the selective destruction of the best human stocks. Early wars promoted organization and efficiency, but these have now become the aims of modern industry. During past ages war was a social ferment which pushed civilization forward; this result is now better attained by ambition and invention. Ancient warfare supported the concept of a God of battles, but modern man has been told that God is love. War has served many valuable purposes in the past, it has been an indispensable scaffolding in the building of civilization, but it is rapidly becoming culturally bankrupt — incapable of producing dividends of social gain in any way commensurate with the terrible losses attendant upon its invocation.

70:2.10 (786.1) At one time physicians believed in bloodletting as a cure for many diseases, but they have since discovered better remedies for most of these disorders. And so must the international bloodletting of war certainly give place to the discovery of better methods for curing the ills of

유란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적 군국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투쟁을 이미 시작했으며, 이 투쟁은 목자{牧者}인 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의 투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주의가 군국주의를 이기려면, 산업주의를 따르는 위험 요소들을 피해야 한다. **유란시아**에서 싹트는 산업의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 즉 영적 무지를 향한 심각한 표류.
2. 부와 권력을 숭배함, 즉 가치 왜곡.
3. 사치하는 악습{惡習}, 즉 문화적 미성숙.
4. 게으름, 즉 봉사에 무감각함의 위험성이 증대됨.
5. 바람직하지 못한 인종적 관대함의 증가, 즉 생물학상의 퇴보.
6. 표준화된 산업에 노예가 될 징조, 즉 인간성의 침체. 노동은 고상하게 만들지만, 단순 노동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군국주의는 독재적이고 잔인하다--곧 야만적이다. 그것은 정복자들 가운데서 사회 조직을 증진시키지만, 피정복자들을 붕괴시킨다. 산업주의는 더 문명화된 것이며, 창의력을 촉진시키고 개인주의를 장려하도록 진행돼야 한다. 사회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독창성을 육성해야 한다.

전쟁을 찬양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전쟁이 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지 분별해서, 문명의 계속되는 진보를 위해 무엇으로 전쟁을 대체시킬 것인지, 너희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충분한 대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을 확신해도 좋다.

평화가 사람의 물질적 복지에 최선임을 완전하게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인류의 자아_보존 반응 가운데 하나인, 늘 누적되는 감정과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고안된 집단적 충동을 주기적으로 해소시키는 선천적 성향을 만족시키도록, 사회가 평화적인 대용품을 현명하게 제공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평화를 정상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이 난 김에, 전쟁은 체험 훈련소로서 존중 받아야 할 것이며, 이 훈련소는 오만한 이기주의자들로 구성된 인종으로 하여금 크게 집중된 권위에--곧 대통령에게--복종하도록 강요했다. 구식{舊式}의 전쟁은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회는 이제 평화의 전리품, 즉: 산업, 과학, 및 사회적 성취에 눈을 돌려야 한다.

nations.

70:2.11 (786.2) The nations of Urantia have already entered upon the gigantic struggle between nationalistic militarism and industrialism, and in many ways this conflict is analogous to the agelong struggle between the herder-hunter and the farmer. But if industrialism is to triumph over militarism, it must avoid the dangers which beset it. The perils of budding industry on Urantia are:

70:2.12 (786.3) 1. The strong drift toward materialism, spiritual blindness.

70:2.13 (786.4) 2. The worship of wealth-power, value distortion.

70:2.14 (786.5) 3. The vices of luxury, cultural immaturity.

70:2.15 (786.6) 4. The increasing dangers of indolence, service insensitivity.

70:2.16 (786.7) 5. The growth of undesirable racial softness, biologic deterioration.

70:2.17 (786.8) 6. The threat of standardized industrial slavery, personality stagnation. Labor is ennobling but drudgery is benumbing.

70:2.18 (786.9) Militarism is autocratic and cruel -- savage. It promotes social organization among the conquerors but disintegrates the vanquished. Industrialism is more civilized and should be so carried on as to promote initiative and to encourage individualism. Society should in every way possible foster originality.

70:2.19 (786.10) Do not make the mistake of glorifying war; rather discern what it has done for society so that you may the more accurately visualize what its substitutes must provide in order to continue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if such adequate substitutes are not provided, then you may be sure that war will long continue.

70:2.20 (786.11) Man will never accept peace as a normal mode of living until he has been thoroughly and repeatedly convinced that peace is best for his material welfare, and until society has wisely provided peaceful substitutes for the gratification of that inherent tendency periodically to let loose a collective drive designed to liberate those ever-accumulating emotions and energies belonging to the self-preservation reactions of the human species.

70:2.21 (786.12) But even in passing, war should be honored as the school of experience which compelled a race of arrogant individualists to submit themselves to highly concentrated authority -- a chief executive. Old-fashioned war did select the innately great men for leadership, but modern war no longer does this. To discover leaders society must now turn to the conquests of peace: industry, science, and social achievement.

3. 초기의 인간 연합체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대집단{大集團}이 전부이고, 아이들조차 무리의 공동 재산이다. 아이의 양육에서 진화하는 가정이 대집단을 대체한 반면, 새로 출현한 씨족과 부족이 사회 단위로서 가정을 대신했다.

성욕과 모성애가 가족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족을 초월하는 집단들이 형성되기 전에는 실제 정부 형태가 출현하지 못한다. 대집단이 가족을 형성하던 시대 이전에는, 비공식으로 뽑은 개인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은 이런 원시 단계를 넘어서 진보한 적이 없었고; 대집단에는 우두머리가 없다.

핏줄로 결합된 가족들이 혈연 집합체인 씨족으로 연합했고; 나중에 이것이 진보돼서 지역 공동체인 부족을 이루게 됐다.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까운 씨족들에게 부족 체제를 이루도록 강요했지만, 초기의 이 원시 집단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내부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묶일 수 있게 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망상적 평화를 계획하는, 감상에 젖은 어떤 꾀변보다, 국제 무역 체제들이, 유란시아의 평화를 훨씬 더 증진시킬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그리고 향상된 교통수단뿐 아니라 개선된 통신 방법 이, 무역 관계를 촉진시켜 왔다.

공통 언어의 부재{不在}가, 평화를 지키는 집단들의 성장을 항상 방해했지만, 현대의 무역에서는 돈이 보편적 언어가 돼왔다. 주로 산업 시장이 현대 사회를 결속시킨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봉사하려는 욕구로 증대됐을 때, 문명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초기 시대에 각 부족은, 바깥쪽일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커지는 그런 동심원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모든 낯선 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 삼는 일이 한때의 관습이었다. 친구 관계의 옛 관념은 씨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으며; 씨족에 소속되면 죽은 뒤에 생존한다고 믿었다--곧 가장 초기의 영생{永生} 개념 가운데 하나였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예법으로 상대방의 피를 마셨다. 어떤 집단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 침을 서로 나눴는데, 이것이 사교적 입맞춤을 행하는 풍습의 옛 기원이다. 그리고 결혼이든지 양자결연이든지, 연합을 이루는 모든 예식 끝에는 반드시 축제가 열렸다.

후대에는, 피 섞은 붉은 포도주가 사용됐고, 결국 포도주만 마심으로써 서로 받아들이는 예법을 지켰으며, 포도주 잔에 손을 담으로써 승인을 표명했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완료됐다. 히브리

3. EARLY HUMAN ASSOCIATIONS

70:3.1 (787.1) In the most primitive society the *horde* is everything; even children are its common property. The evolving family displaced the horde in child rearing, while the emerging clans and tribes took its place as the social unit.

70:3.2 (787.2) Sex hunger and mother love establish the family. But real government does not appear until superfamily groups have begun to form. In the prefamily days of the horde, leadership was provided by informally chosen individuals. The African Bushmen have never progressed beyond this primitive stage; they do not have chiefs in the horde.

70:3.3 (787.3) Families became united by blood ties in clans, aggregations of kinsmen; and these subsequently evolved into tribes, territorial communities. Warfare and external pressure forced the tribal organization upon the kinship clans, but it was commerce and trade that held these early and primitive groups together with some degree of internal peace.

70:3.4 (787.4) The peace of Urantia will be promoted far more b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an by all the sentimental sophistry of visionary peace planning. Trade relations have been facilitated by development of language and by improved method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by better transportation.

70:3.5 (787.5) The absence of a common language has always impeded the growth of peace groups, but money has become the universal language of modern trade. Modern society is largely held together by the industrial market. The gain motive is a mighty civilizer when augmented by the desire to serve.

70:3.6 (787.6) In the early ages each tribe was surrounded by concentric circles of increasing fear and suspicion; hence it was once the custom to kill all strangers, later on, to enslave them. The old idea of friendship meant adoption into the clan; and clan membership was believed to survive death — one of the earliest concepts of eternal life.

70:3.7 (787.7) The ceremony of adoption consisted in drinking each other's blood. In some groups saliva was exchanged in the place of blood drinking, this being the ancient origin of the practice of social kissing. And all ceremonies of association, whether marriage or adoption, were always terminated by feasting.

70:3.8 (787.8) In later times, blood diluted with red wine was used, and eventually wine alone was drunk to seal the adoption ceremony, which was signified in the touching of the wine cups and

인은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예법으로부터 변경된 형태를 채택했다. 그들의 **아랍** 조상은,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生殖器}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다. **히브리인**은 받아들인 외국인을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우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낯선 이들을 너희 중에 태어난 사람처럼 대할 것이며, 너 자신처럼 그를 사랑해야 한다.”

“손님과의 우정”은 잠시 확대하는 관계였다. 방문했던 손님이 떠날 때, 접시를 둘로 쪼개서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주고, 제삼자{第三者}가 나중에 방문할 때 적절한 소개장{紹介狀}이 되게 했다. 손님은 자신의 여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빛을 갠 것이 관례였다. 옛 시대에 이야기꾼이 너무 유행하게 됐으므로, 결국 사냥이나 추수하는 시기에는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사회관행이 생겼다.

최초의 평화 조약은 “피로 맺는 계약”이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부족의 평화 사절{使節}이 만나서 경의를 표한 후에, 피가 흐를 때까지 피부를 찔렀으며;서로의 피를 빨아 마시면서 평화를 선언하곤 했다.

가장 일찍 있었던 평화 사절단은, 한때 자신의 적{敵}이었던 사람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선택한 처녀들을 거느린 파견대표단으로 구성됐는데, 전쟁의 충동을 제거하는 일에 성욕이 이용됐다. 그렇게 공경 받은 부족은 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면서 처녀들을 선물로 줬으며;그 후부터 평화가 정착되곤 했다. 그리고 곧 족장{族長} 가족들 간의 결혼이 허용됐다.

4. 씨족과 부족

최초의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씨족, 부족,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이 이뤄졌는데, 민족이 결국 현대의 지역 국가를 이루게 됐다. **유란시아**의 나라들이 여전히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평화 집단들이 오래 전부터 혈연을 넘어서 나라들을 용납하기까지 확장됐다는 사실은,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씨족은 부족 내에서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공통 이해관계를 가졌다:

1.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음.
2. 동일한 종교 토템을 모심.
3. 같은 통용어를 사용함.
4. 공동 거주지에서 생활함.

consummated by the swallowing of the beverage. The Hebrews employed a modified form of this adoption ceremony. Their Arab ancestors made use of the oath taken while the hand of the candidate rested upon the generative organ of the tribal native. The Hebrews treated adopted aliens kindly and fraternally. “The stranger that dwells with you shall be as one born among you, and you shall love him as yourself.”

70:3.9 (787.9) “Guest friendship” was a relation of temporary hospitality. When visiting guests departed, a dish would be broken in half, one piece being given the departing friend so that it would serve as a suitable introduction for a third party who might arrive on a later visit. It was customary for guests to pay their way by telling tales of their travels and adventures. The storytellers of olden times became so popular that the mores eventually forbade their functioning during either the hunting or harvest seasons.

70:3.10 (788.1) The first treaties of peace were the “blood bonds.” The peace ambassadors of two warring tribes would meet, pay their respects, and then proceed to prick the skin until it bled; whereupon they would suck each other’s blood and declare peace.

70:3.11 (788.2) The earliest peace missions consisted of delegations of men bringing their choice maidens for the sex gratification of their onetime enemies, the sex appetite being utilized in combating the war urge. The tribe so honored would pay a return visit, with its offering of maidens; whereupon peace w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soon intermarriages between the families of the chiefs were sanctioned.

4. CLANS AND TRIBES

70:4.1 (788.3) The first peace group was the family, then the clan, the tribe, and later on the nation, which eventually became the modern territorial state. The fact that the present-day peace groups have long since expanded beyond blood ties to embrace nations is most encouraging, despite the fact that Urantia nations are still spending vast sums on war preparations.

70:4.2 (788.4) The clans were blood-tie groups within the tribe, and they owed their existence to certain common interests, such as:

- 70:4.3 (788.5) 1. Tracing origin back to a common ancestor.
- 70:4.4 (788.6) 2. Allegiance to a common religious totem.
- 70:4.5 (788.7) 3. Speaking the same dialect.
- 70:4.6 (788.8) 4. Sharing a common dwelling place.

5. 동일한 적을 두려워함.

6. 공동으로 전투 체험을 했음.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부족장{部族長}에게 복종했으며; 초기 부족 정부는 씨족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다.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은 결코 부족 형태의 정부를 개발하지 못했다.

평화로운 때, 씨족 추장은 대계 모계{母系}를 통해서 다스렸으며; 전시{戰時}의 부족 추장은 부계{父系}를 확립했다. 부족장과 초기 왕의 법정은 씨족장들로 구성됐는데, 매 년 몇 차례씩 그들을 왕 앞으로 소집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협동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씨족들은 지역의 자체 정부를 통해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게는 했지만, 큰 규모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지연시켰다.

5. 정부의 출현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며, 시민 정부는, 결혼, 산업, 및 종교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 씨족과 원시 부족들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정부 체제가 점차 발전했는데, 그 정부 체제들은, 20세기 중반의 특징을 이룬 그런 형태의 사회 및 민간 규칙에 바로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 왔다.

가족 단위들이 점차 출현함에 따라서, 정부도 씨족 체제, 즉 혈통이 같은 가족들의 집단화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게 됐다. 최초의 정부다운 정부 체제는 **원로{元老} 회의회**였다. 조정 기능을 가진 이 집단은, 남달리 유능함을 보인 바 있던 노인들로 구성됐다. 지혜와 체험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일찍부터 높이 인정받았으며, 원로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됐다. 나이 든 소수가 이렇게 독재하는 통치는, 점차 족장{族長} 개념으로 발전했다.

원로들로 구성된 초기 회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모든 잠재 기능들: 즉 행정, 입법, 및 사법 기능이 있었다. 회의회가 당시 사회관행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법정의 역할을 했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관행을 세울 때에는 입법기관이었으며; 그런 판결과 법규를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였다. 회의회의 의장은, 후대의 부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어떤 부족은 여성 회의회도 있었고, 때로는 여성이 다스리는 부족도 많았다. 홍색인 가운데 어떤 부족은, “7인 회의회”의 만장일치 통치를 따르는 면에서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보존했다.

70:4.7 (788.9) 5. Fearing the same enemies.

70:4.8 (788.10) 6. Having had a common military experience.

70:4.9 (788.11) The clan headmen were always subordinate to the tribal chief, the early tribal governments being a loose confederation of clans. The native Australians never developed a tribal form of government.

70:4.10 (788.12) The clan peace chiefs usually ruled through the mother line; the tribal war chiefs established the father line. The courts of the tribal chiefs and early kings consisted of the headmen of the clans, whom it was customary to invite into the king's presence several times a year. This enabled him to watch them and the better secure their co-operation. The clans served a valuable purpose in local self-government, but they greatly delayed the growth of large and strong nations.

5.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70:5.1 (788.7) Every human institution had a beginning, and civil government is a product of progressive evolution just as much as are marriage, industry, and religion. From the early clans and primitive tribes there gradually developed the successive orders of human government which have come and gone right on down to those forms of social and civil regulation that characterize the second third of the twentieth century.

70:5.2 (788.8) With the gradual emergence of the family units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were established in the clan organization, the grouping of consanguineous families. The first real governmental body was the *council of the elders*. This regulative group was composed of old men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ome efficient manner. Wisdom and experience were early appreciated even by barbaric man, and there ensued a long age of the domination of the elders. This reign of the oligarchy of age gradually grew into the patriarchal idea.

70:5.3 (789.1) In the early council of the elders there resided the potential of all governmental function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When the council interpreted the current mores, it was a court; when establishing new modes of social usage, it was a legislature; to the extent that such decrees and enactments were enforced, it was the executive. The chairman of the council was one of the forerunners of the later tribal chief.

70:5.4 (788.10) Some tribes had female councils, and from time to time many tribes had women rulers. Certain tribes of the red man preserved the teaching of Onamonalonton in following the unanimous rule of the “council of seven.”

논쟁하는 사회는, 평화는 물론 전쟁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기는 매우 힘들었다. 원시의 “교섭”은 별로 쓸모가 없었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씨족장이 명령하는 군대는, 강력한 한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에 맞서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전쟁은 반드시 왕을 세웠다.

처음에 전쟁을 맡은 추장은 군 복무만을 위해 뽑혔고, 평화 시에는 그 권위 중에서 일부가 해제되곤 했는데, 그러면 추장의 임무는 사회적인 성질을 더 띠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로운 기간에도 권한을 갖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서, 전쟁 후에도 다음 전쟁 때까지 계속 통치하려고 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서 다음 전쟁이 이어지도록 모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초기의 전쟁 주관자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대에는 군 복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어떤 추장들이 선정됐는데, 보기 드문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재능 때문에 뽑혔다. 홍색인은 두 종류의 추장--곧 평화시의 지도자인 추장과, 전쟁을 맡는 세습되는 추장--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평화시의 통치자는 재판관과 선생을 겸했다.

초기의 어떤 공동체들은 주술사가 통치했는데, 그들은 종종 추장으로서 행세했다. 한 사람이, 사제{司祭}, 의사, 및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곤 했다. 초기의 호화로운 휘장은 원래 성직자 복장의 상징 또는 문장{紋章}인 경우가 아주 흔했다.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정부의 행정 부문{部門}이 점차 생겨나게 됐다. 씨족과 부족의 협의회는, 자문하는 자격으로 계속 유지됐고, 후대에 나타난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원시 정부의 모든 형태가 여러 부족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

6. 군주제 정부

효과적인 국가 통치는, 완전한 행정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가 출현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사람은, 어떤 관념을 증여함으로써가 아니라, 한 인물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만 효과적인 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치지위는, 가족의 권한 또는 재산 관념으로부터 형성됐다. 족장 소왕{小王}이 실제적인 왕{王}으로 바뀌게 됐을 때, 때로는 그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영웅들로부터 왕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는 믿음 때문에, 통치 지위가 세습됐다.

세습되는 왕권은, 이전에 한 왕이 죽은 때부터 후임자가 결정되는 사이에 대혼란을 일으켰던, 무정부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해줬다. 가족은 생물학상의 우두머리를 가졌고;씨족은 자연히 선택된

70:5.5 (788.11) It has been hard for mankind to learn that neither peace nor war can be run by a debating society. The primitive “palavers” were seldom useful. The race early learned that an army commanded by a group of clan heads had no chance against a strong one-man army. War has always been a kingmaker.

70:5.6 (788.12) At first the war chiefs were chosen only for military service, and they would relinquish some of their authority during peacetimes, when their duties were of a more social nature. But gradually they began to encroach upon the peace intervals, tending to continue to rule from one war on through to the next. They often saw to it that one war was not too long in following another. These early war lords were not fond of peace.

70:5.7 (788.13) In later times some chiefs were chosen for other than military service, being selected because of unusual physique or outstanding personal abilities. The red men often had two sets of chiefs — the sachems, or peace chiefs, and the hereditary war chiefs. The peace rulers were also judges and teachers.

70:5.8 (788.14) Some early communities were ruled by medicine men, who often acted as chiefs. One man would act as priest, physician, and chief executive. Quite often the early royal insignias had originally been the symbols or emblems of priestly dress.

70:5.9 (788.15) And it was by these steps that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gradually came into existence. The clan and tribal councils continued in an advisory capacity and as forerunners of the later appearing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Africa, today, all these forms of primitive government are in actual existence among the various tribes.

6. MONARCHIAL GOVERNMENT

70:6.1 (789.8) Effective state rule only came with the arrival of a chief with full executive authority. Man found that effective government could be had only by conferring power on a personality, not by endowing an idea.

70:6.2 (789.9) Rulership grew out of the idea of family authority or wealth. When a patriarchal kinglet became a real king, he was sometimes called “father of his people.” Later on, kings were thought to have sprung from heroes. And still further on, rulership became hereditary, due to belief in the divine origin of kings.

70:6.3 (789.10) Hereditary kingship avoided the anarchy which had previously wrought such havoc between the death of a king and the election of a successor. The family had a biologic head; the

지도자를 가졌으며; 부족과 후대{後代}의 국가는 자연발생적인 지도자를 갖지 못했는데, 이것이 추장이나_왕권의 세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왕가{王家}와 귀족의 관념은, 씨족들에게 있었던 “이름 소유권”이라는 사회관행에 기초를 두기도 했다.

왕위 계승은 결국 초자연의 일로 간주됐는데, 왕의 핏줄이 **캘리개스타 왕자**의 물질화된 참모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주물 인격체가 됐고, 과도한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특별한 형태의 말투를 왕실 어법{王室語法}으로 사용했다. 최근까지도, 왕과 접촉함으로써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유란시아**의 어떤 민족은 아직도 그 통치자가 신성한 기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초기의 주물 왕은 흔히 격리된 생활을 했으며; 너무 신성시되어, 축제 기간과 거룩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볼 수도 없었다. 대개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행자가 선출됐으며, 이것이 수상{首相}의 기원이다. 내각{內閣}의 최초 관원은 음식 관리자였고, 다른 직책들이 뒤따라 생겨났다. 통치자는 교역과 종교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을 선임했으며; 내각 제도의 발전은, 집행부 권위를 개인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직접 원인이 됐다. 초기의 왕을 보좌하던 이 사람들은 귀족으로 선택됐고, 여자들이 더 존중받게 되면서, 왕의 아내는 왕비의 위엄으로 높아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은 독약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권력을 획득했다. 초기의 궁정{宮廷} 마술은 악마적이었고; 왕에게 대적하는 자는 곧 죽게 됐다. 그러나 가장 악랄한 폭군도 어느 정도 제한 받았는데, 어쨌든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암살에 대한 공포가 그를 억제시켰다. 주술사, 의사, 및 사제{司祭}들은 왕에게 반드시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됐다. 나중에는 땅을 소유한 자들, 즉 귀족이, 압박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때때로 씨족과 부족들이 단순한 의도로 봉기해서, 독재자와 폭군을 타도하기도 했다. 폐위{廢位}된 통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자살하는 유행이 고대 사회에서 시작됐다.

clan, a selected natural leader; the tribe and later state had no natural leader, and this was an additional reason for making the chief-kings hereditary. The idea of royal families and aristocracy was also based on the mores of “name ownership” in the clans.

70:6.4 (790.1) The succession of kings was eventually regarded as supernatural, the royal blood being thought to extend back to the times of the materialized staff of Prince Caligastia. Thus kings became fetish personalities and were inordinately feared, a special form of speech being adopted for court usage. Even in recent times it was believed that the touch of kings would cure disease, and some Urantia peoples still regard their rulers as having had a divine origin.

70:6.5 (790.2) The early fetish king was often kept in seclusion; he was regarded as too sacred to be viewed except on feast days and holy days. Ordinarily a representative was chosen to impersonate him, and this is the origin of prime ministers. The first cabinet officer was a food administrator; others shortly followed. Rulers soon appointed representatives to be in charge of commerce and religion; and the development of a cabinet was a direct step toward depersonalization of executive authority. These assistants of the early kings became the accepted nobility, and the king's wife gradually rose to the dignity of queen as women came to be held in higher esteem.

70:6.6 (790.3) Unscrupulous rulers gained great power by the discovery of poison. Early court magic was diabolical; the king's enemies soon died. But even the most despotic tyrant was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he was at least restrained by the ever-present fear of assassination. The medicine men, witch doctors, and priests have always been a powerful check on the kings. Subsequently, the landowners, the aristocracy, exerted a restraining influence. And ever and anon the clans and tribes would simply rise up and overthrow their despots and tyrants. Deposed rulers, when sentenced to death, were often given the option of committing suicide, which gave origin to the ancient social vogue of suicide in certain circumstances.

7. 원시 동호회와 비밀 공동체

혈연관계가 최초의 사회 집단들을 확정했으며; 연합을 통해서 친척 관계의 씨족이 확대됐다. 씨족 간의 결혼은 그 다음 단계로 집단 확대를 이룩했고, 그 결과로 생긴 복합적인 부족은 참된 첫 정치 기구였다. 사회 발전에서 다음 단계는, 종교적 종파와 정치 동호회{同好會}의 출현이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비밀 공동체로 결성됐고, 원래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통제하

7. PRIMITIVE CLUBS AND SECRET SOCIETIES

70:7.1 (790.4) Blood kinship determined the first social groups; association enlarged the kinship clan. Intermarriage was the next step in group enlargement, and the resultant complex tribe was the first true political body. The next advance in social development was the evolution of religious cults and the political clubs. These first appeared as secret societies and originally were wholly

는 것이 됐다. 처음에는 이런 공동체들이 남자의 동호회였고;나중에는 여자의 모임도 나타났다. 이 육고 그것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사회정치적인 부류와 종교적이고_신비적인 부류였다.

이런 공동체들이 비밀리에 이뤄진 이유가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어떤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통치자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2. 소수와 종교의 제례를 실행하기 위하여.
3. 가치 있는 “기풍”이나 거래 비밀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4. 어떤 특별한 마법이나 마술을 즐기기 위하여.

이런 공동체의 강력한 비밀 엄수로, 그 부족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신비의 능력을 모든 회원에게 제공했다. 비밀 엄수는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회원 가입은 당대의 사회적 특권이였다. 가입된 후에는 소년들이 어른과 함께 사냥했으며;반면에 그 전에는 여자들과 함께 식물을 채집해야 했다. 그리고 사춘기에 거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남자의 거주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 및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약한 자로 취급받는 것은, 최고의 굴욕이고 부족에서 망신거리였다. 게다가, 가입되지 못한 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원시 민족은, 청년기에 도달한 자녀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성욕(性慾)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춘기부터 결혼할 때까지, 남아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관례가 됐는데, 그들의 교육과 훈련은 남자 비밀 공동체에게 위임됐다. 그리고 이런 동호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청년기의 젊은 남자를 계속 통제함으로써, 사생아(私生兒)의 탄생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남자 동호체들이 다른 부족 여자를 이용하는 대가{代價}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상업화된 매춘이 시작됐다. 그러나 초기 집단들은 방종{放縱}한 성관계와는 현저히 거리가 멀었다.

사춘기에 입문하는 의식{儀式}은 대개 5년간 계속됐다. 많은 고행{苦行}과 고통스럽게 상처 내는 행위가 이 의식에 포함됐다. 이런 단체 가운데 하나에 가입되는 제례로, 할례가 처음 실행됐다. 사춘기 입문식의 일부로 부족의 표지{標識}를 피부에 새겼으며;문신(文身)은 그런 회원을 상징하는 표시에서 기원됐다.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은, 오랫동안의 궁핍과 함께, 이 젊은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즉 삶의 실체감과 피할 수 없는 결핍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고안됐다. 후대에 나타난 운동 경기와 육체적 경연이 이런 목적을 더 훌륭하게 성취한다.

그러나 비밀 공동체들은 청년의 도덕 증진에 목적을 뒀는데;사춘기 의식{儀式}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소년에게 심어주는 것이

religious; subsequently they became regulative. At first they were men's clubs; later women's groups appeared. Presently they became divided into two classes: sociopolitical and religio-mystical.

70:7.2 (790.5) There were many reasons for the secrecy of these societies, such as:

70:7.3 (790.6) 1. Fear of incurring the displeasure of the rulers because of the violation of some taboo.

70:7.4 (790.7) 2. In order to practice minority religious rites.

70:7.5 (790.8) 3.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valuable “spirit” or trade secrets.

70:7.6 (790.9) 4. For the enjoyment of some special charm or magic.

70:7.7 (790.10) The very secrecy of these societies conferred on all members the power of mystery over the rest of the tribe. Secrecy also appeals to vanity; the initiates were the social aristocracy of their day. After initiation the boys hunted with the men; whereas before they had gathered vegetables with the women. And it was the supreme humiliation, a tribal disgrace, to fail to pass the puberty tests and thus be compelled to remain outside the men's abode with the women and children, to be considered effeminate. Besides, noninitiates were not allowed to marry.

70:7.8 (791.1) Primitive people very early taught their adolescent youths sex control. It became the custom to take boys away from parents from puberty to marriage,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being intrusted to the men's secret societies. And one of the chief functions of these clubs was to keep control of adolescent young men, thus preventing illegitimate children.

70:7.9 (791.2) Commercialized prostitution began when these men's clubs paid money for the use of women from other tribes. But the earlier groups were remarkably free from sex laxity.

70:7.10 (791.3) The puberty initiation ceremony usually extended over a period of five years. Much self-torture and painful cutting entered into these ceremonies. Circumcision was first practiced as a rite of initiation into one of these secret fraternities. The tribal marks were cut on the body as a part of the puberty initiation; the tattoo originated as such a badge of membership. Such torture, together with much privation, was designed to harden these youths, to impress them with the reality of life and its inevitable hardships. This purpose is better accomplished by the later appearing athletic games and physical contests.

70:7.11 (791.4) But the secret societies did aim at the improvement of adolescent morals; one of the chief purposes of the puberty ceremonies was to impress upon the boy that he must leave other men's wives alone.

었다.

이런 여러 해 동안의 종교적 수양과 훈련이 있는 후에, 그리고 결혼이 이뤄지기 전에, 젊은이들은 대개 짧은 기간의 한가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그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결혼했고, 부족의 금기를 평생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고대의 이런 관습은, “젊은 혈기로 난봉부리기”라는 어리석은 관념으로 현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후대의 여러 부족은 여자 비밀 동호회를 허용했는데, 그 목적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처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입회한 후에 소녀는 결혼할 자격을 얻었고, “신부 보여주기”, 즉 당대의 성인 축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반대하기로 서약한 여자 계층이 일찍부터 생겼다.

결혼하지 못한 남자 집단과 결혼하지 못한 여자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되자, 마침내 공개적인 동호회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 연합체들은 정말로 최초의 학교에 해당했다. 그리고 남녀 동호회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경향에 종종 빠졌지만, 진취적인 어떤 부족들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과 접촉한 후에, 남녀공학을 실험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했다.

비밀 공동체들은, 주로 입회식의 신비스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회 신분계층이 형성되도록 기여했다. 이 공동체 회원들은, 애도하는 제례—곤조상송배—현장에서 호기심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내려고, 처음으로 가면을 썼다. 이런 종교 제례식이 나중에는 사이비 강신회{降神會}로 발전했는데, 거기서 유령들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퍼졌다. “새로 출현한”고대의 공동체들은 기호를 사용했고, 특별한 은어{隱語}를 이용했으며; 특정한 음식과 음료수를 거부했다. 그들은 야간 경비원으로 활동했고, 그밖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역할을 했다.

모든 비밀 연합체는 맹세를 강요했고, 신용을 요구했으며, 비밀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이런 명령이 폭도에게 두려움을 줘서 통제했으며; 또한 그들은 자체 경비 공동체로서 활약함으로써, 사형{私刑} 법을 실행했다. 그들은 부족 간 전쟁이 발생할 때 선두 정탐꾼이 됐고, 평화시에는 선두 비밀경찰이 됐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악한 왕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들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왕은 친위 비밀경찰을 양성했다.

이 공동체들로 인해서 최초의 정치 정당이 출현했다. 최초의 정당정치는 “강한 편”과 “약한 편”의 대결로 이뤄졌다. 고대에는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 곧 내란{內亂}이 뒤따랐는데, 약한 편이 강하게 됐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 동호회들은, 빚을 독촉하려는 상인에게 고용됐고, 세금을 거두려는 통치자에게 고용됐다. 세금 징수는 오랫동안 투쟁을 겪었는데, 가장 오

70:7.12 (791.5) Following these years of rigorous discipline and training and just before marriage, the young men were usually released for a short period of leisure and freedom, after which they returned to marry and to submit to lifelong subjection to the tribal taboos. And this ancient custom has continued down to modern times as the foolish notion of “sowing wild oats.”

70:7.13 (791.6) Many later tribes sanctioned the formation of women's secret clubs, the purpose of which was to prepare adolescent girls for wifehood and motherhood. After initiation girls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were permitted to attend the “bride show,” the coming-out party of those days. Women's orders pledged against marriage early came into existence.

70:7.14 (791.7) Presently nonsecret clubs made their appearance when groups of unmarried men and groups of unattached women formed their separate organizations. These associations were really the first schools. And while men's and women's clubs were often given to persecuting each other, some advanced tribes, after contact with the Dalamatia teachers, experimented with coeducation, having boarding schools for both sexes.

70:7.15 (791.8) Secret societies contributed to the building up of social castes chiefly by the mysterious character of their initiations. The members of these societies first wore masks to frighten the curious away from their mourning rites — ancestor worship. Later this ritual developed into a pseudo seance at which ghosts were reputed to have appeared. The ancient societies of the “new birth” used signs and employed a special secret language; they also forswore certain foods and drinks. They acted as night police and otherwise functioned in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70:7.16 (792.1) All secret associations imposed an oath, enjoined confidence, and taught the keeping of secrets. These orders awed and controlled the mobs; they also acted as vigilance societies, thus practicing lynch law. They were the first spies when the tribes were at war and the first secret police during times of peace. Best of all they kept unscrupulous kings on the anxious seat. To offset them, the kings fostered their own secret police.

70:7.17 (792.2) These societies gave rise to the first political parties. The first party government was “the strong” vs. “the weak.” In ancient times a change of administration only followed civil war, abundant proof that the weak had become strong.

70:7.18 (792.3) These clubs were employed by merchants to collect debts and by rulers to collect taxes. Taxation has been a long struggle, one of the earliest forms being the tithe, one tenth of the

래된 형태는 십일조, 즉 사냥한 것과 약탈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다. 세금은 원래 왕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됐지만, 신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물 하도록 속임수를 쓰면 세금 거두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윽고 이런 비밀 연합체들이 점점 커져서, 최초의 자선(慈善) 단체를 이뤘고, 나중에는 --교회의 전조(前兆)인-- 초기 종교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더러는 마침내 여러 부족을 참여시키게 돼서, 최초의 국제 협동단체가 됐다.

8. 사회 계층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차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회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 계급이 없는 유일한 세계는, 가장 원시적인 세계와 가장 진보된 세계다. 문명이 태동(胎動)될 때에는 아직 사회 수준의 분화(分化)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빛과 생명의 단계에 도달한 세계에서는, 진화의 중간 단계들의 특질인 이런 인류 구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미개한 상태로 발전되면서, 인간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이유 때문에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다:

1. **선천적 이유** --연줄, 친척 관계, 및 결혼; 최초의 사회적 차이는 성(性), 나이, 핏줄에--곧 우두머리와 친척 관계에-- 기초를 뒀다.

2. **개인적 이유** --역량, 인내심, 솜씨, 및 강인함을 높이 평가함; 언어 숙련도, 지식, 그리고 일반적 지성에 대한 인식이 곧 뒤따랐음.

3. **기회** --전쟁과 이주(移住)로 말미암아 인간 집단들의 분리가 이뤄짐. 계층의 진화는, 정복, 즉 승리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노예제도는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사회 분화가 이뤄지게 했다.

4. **경제적 이유** --부자와 가난한 자. 재산과 노예의 소유는 한 사회 계층의 유전적 기초였다.

5. **지리적 이유** --정착된 곳이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에 따라서 계층이 결정됨. 도시와 시골은, 목자_농업인과 상인_산업인이 구분되도록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서로 달랐다.

6. **사회적 이유** --여러 다른 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대중이 평가함에 따라서 점차 계층들이 형성됨. 이런 종류의 최초 분화(分化) 가운데에는, 사제(司祭)_선생, 통치자_전사(戰士), 자본가_상인, 일반 노동자, 그리고 노예 사이의 구분이 있었다.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자본가 반열에 들어오도록 뽑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예는 결코 자본가가 되

hunt or spoils. Taxes were originally levied to keep up the king's house, but it was found that they were easier to collect when disguised as an offering for the support of the temple service.

70:7.19 (792.4) By and by these secret associations grew into the first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ater evolved into the earlier religious societies — the forerunners of churches. Finally some of these societies became intertribal, the first international fraternities.

8. SOCIAL CLASSES

70:8.1 (792.5) The mental and physical inequality of human beings insures that social classes will appear. The only worlds without social strata are the most primitive and the most advanced. A dawning civilization has not yet begun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levels, while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has largely effaced these divisions of mankind, which are so characteristic of all intermediate evolutionary stages.

70:8.2 (792.6) As society emerged from savagery to barbarism, its human components tended to become grouped in classes for the following general reasons:

70:8.3 (792.7) 1. *Natural* — contact, kinship, and marriage; the first social distinctions were based on sex, age, and blood — kinship to the chief.

70:8.4 (792.8) 2. *Personal* — the recognition of ability, endurance, skill, and fortitude; soon followed by the recognition of language mastery, knowledge, and general intelligence.

70:8.5 (792.9) 3. *Chance* — war and emigration resulted in the separating of human groups. Class evolution was powerfully influenced by conquest, the relation of the victor to the vanquished, while slavery brought about the first general division of society into free and bond.

70:8.6 (792.10) 4. *Economic* — rich and poor. Wealth and the possession of slaves was a genetic basis for one class of society.

70:8.7 (792.11) 5. *Geographic* — classes arose consequent upon urban or rural settlement. City and country have respectively contributed to the differentiation of the herder-agriculturist and the trader-industrialist, with their divergent viewpoints and reactions.

70:8.8 (792.12) 6. *Social* — classes have gradually formed according to popular estimate of the social worth of different groups. Among the earliest divisions of this sort were the demarcations between priest-teachers, ruler-warriors, capitalist-traders, common laborers, and slaves. The slave could never become a capitalist, though

지 못했다.

7. **직업적 이유** --직업이 세분화되자, 그들은 신분계층과 조합을 형성하려고 했다. 노동자는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 주술사를 포함한 전문 계층, 그 다음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있었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그 뒤를 이었다.

8. **종교적 이유** --초기 종파 동호회는, 씨족과 부족 내에서 자기들만의 계층을 형성했고, 사제들의 경건성과 신비성이 그들을 오랫동안 구별된 사회 집단으로 남아 있게 했다.

9. **인종적 이유** --하나의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안에 둘 이상의 인종이 함께 있게 되면, 대개 피부색에 따른 신분계층이 형성된다. **인도**의 원래 신분계층 체계는, 초기 **이집트**의 경우처럼, 피부색에 기초한 것이었다.

10. **나이** --어린이와 성인. 부족원 가운데 소년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감독을 받았고, 소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문명이 진화하려면 융통성 있고 변하기 쉬운 사회 계층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계층이 계급 제도로 바뀌면, 즉 사회 수준이 완전히 굳어지면, 사회의 안정성은 개인의 독창력이 감소함으로써 증진된다. 사회 신분계층은, 사람이 산업 사회에서 일터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발전을 심하게 축소시켰고, 사회의 협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공동체 안에서 계층은 자연스럽게 형성돼 왔는데, 진보하는 문명에서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자원을 제치 있게 조종함으로써, 계층은 사람이 진화로 점차 소멸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1. 인종 혈통의 생물학적 쇄신--열등한 인간 종족을 골라서 도태시킴. 이것은 필사자의 많은 불공평을 근절시키게 될 것이다.

2. 그런 생물학적 개선을 통해서 발생하는, 향상된 두뇌 능력을 교육으로 훈련시킴.

3. 필사자가 친척이고 형제관계라는 느낌을 종교적으로 북돋움.

그러나 이런 방책은 장차 수천 년이 흐른 뒤에야 참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화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이 요소들을 지성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 있게 조종한 결과로, 많은 사회적 개선이 즉시 이뤄질 것이다. 종교는 혼란으로부터 문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이지만, 견고하고 정상적인 세습 체제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견고하고 정상적인 정신이라는 받침대가 없이는 힘을 쓸 수 없다.

sometimes the wage earner could elect to join the capitalistic ranks.

70:8.9 (793.1) 7. *Vocational* — as vocations multiplied, they tended to establish castes and guilds. Worker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professional classes, including the medicine men, then the skilled workers, followed by the unskilled laborers.

70:8.10 (793.2) 8. *Religious* — the early cult clubs produced their own classes within the clans and tribes, and the piety and mysticism of the priests have long perpetuated them as a separate social group.

70:8.11 (793.3) 9. *Racial* — the presence of two or more races within a given nation or territorial unit usually produces color castes. The original caste system of India was based on color, as was that of early Egypt.

70:8.12 (793.4) 10. *Age* — youth and maturity. Among the tribes the boy remained under the watchcare of his father as long as the father lived, while the girl was left in the care of her mother until married.

70:8.13 (793.5) Flexible and shifting social classes are indispensable to an evolving civilization, but when *class* becomes *caste*, when social levels petrify, the enhancement of social stability is purchased by diminishment of personal initiative. Social caste solves the problem of finding one's place in industry, but it also sharply curtails individual development and virtually prevents social co-operation.

70:8.14 (793.6) Classes in society, having naturally formed, will persist until man gradually achieves their evolutionary obliteration through intelligent manipulation of the biologic, intellectual, and spiritual resources of a progressing civilization, such as:

70:8.15 (793.7) 1. Biologic renovation of the racial stocks — the selective elimination of inferior human strains. This will tend to eradicate many mortal inequalities.

70:8.16 (793.8) 2. Educational training of the increased brain power which will arise out of such biologic improvement.

70:8.17 (793.9) 3. Religious quickening of the feelings of mortal kinship and brotherhood.

70:8.18 (793.10) But these measures can bear their true fruits only in the distant millenniums of the future, although much social improvement will immediately result from the intelligent, wise, and *patient* manipulation of these acceleration factors of cultural progress. Religion is the mighty lever that lifts civilization from chaos, but it is powerless apart from the fulcrum of sound and normal mind resting securely on sound and normal heredity.

9. 인간의 권리

자연은, 오직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원시림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듯이, 자연은 살 권리조차도 주지 않는다. 공동체가 사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안전{安全}이다.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는데, 오늘날 이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양식 공급 보장.
2. 군사적 방어 --대비를 통한 안전.
3. 내부의 평화 유지 --개인에 대한 폭력과 사회의 무질서 예방.
4. 성(性)의 통제 --결혼, 가족 제도.
5. 재산 --소유권.
6. 개인 및 집단 경쟁의 육성.
7. 청소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준비.
8. 무역과 상업의 증진 --산업 개발.
9. 노동 조건과 보상의 개선.
10. 영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런 모든 다른 사회 활동을 고양{高揚}시키려는 목적으로, 종교 풍습의 자유를 보장함.

권리가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을 때, 이를 흔히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정말로 선천적이지 않으며; 온전히 사회적이다. 이 권리는 상대적이고 항상 변화하는데, 경기 규칙과 다름없다--곧 인간의 항상 변화하는 경쟁 현상을 지배하는, 인정받은 여러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 시대에 권리로 간주됐던 것이 다른 세대에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미비하고 타락한 것 가운데 다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문명을 방해할 만큼 어떤 자연권이든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대의 공동체, 즉 사회관행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때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권리는 국가 또는 교회가 수여한 특권 또는 은혜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잘못에 대한 항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다고 믿도록 유

9. HUMAN RIGHTS

70:9.1 (793.11) Nature confers no rights on man, only life and a world in which to live it. Nature does not even confer the right to live, as might be deduced by considering what would likely happen if an unarmed man met a hungry tiger face to face in the primitive forest. Society's prime gift to man is security.

70:9.2 (793.12) Gradually society asserted its rights and, at the present time, they are:

- 70:9.3 (793.13) 1. Assurance of food supply.
- 70:9.4 (793.14) 2. Military defense — security through preparedness.
- 70:9.5 (793.15) 3. Internal peace preservation — prevention of personal violence and social disorder.
- 70:9.6 (794.1) 4. Sex control — marriage, the family institution.
- 70:9.7 (794.2) 5. Property — the right to own.
- 70:9.8 (794.3) 6. Fostering of individual and group competition.
- 70:9.9 (794.4) 7. Provision for educating and training youth.
- 70:9.10 (794.5) 8. Promotion of trade and commerce — industrial development.
- 70:9.11 (794.6) 9.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rewards.
- 70:9.12 (794.7) 10.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s to the end that all of these other social activities may be exalted by becoming spiritually motivated.

70:9.13 (794.8) When rights are old beyond knowledge of origin, they are often called *natural rights*. But human rights are not really natural; they are entirely social. They are relative and ever changing, being no more than the rules of the game — recognized adjustments of relations governing the ever-changing phenomena of human competition.

70:9.14 (794.9) What may be regarded as right in one age may not be so regarded in another. The survival of large numbers of defectives and degenerates is not because they have any natural right thus to encumber twentieth-century civilization, but simply because the society of the age, the mores, thus decrees.

70:9.15 (794.10) Few human rights were recognized in the European Middle Ages; then every man belonged to someone else, and rights were only privileges or favors granted by state or church. And the revolt from this error was equally erroneous in that it led to the belief that all men are

도한 점에서, 똑같이 잘못됐다.

약하고 열등한 사람은 항상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그들은, 그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밖에 결함을 회복시켜주도록, 국가가 강하고 우수한 자들을 강압해야 한다고 항상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이런 결함은 아주 빈번히, 바로 그들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결과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 이상{理想}은 문명의 산물이며;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바로 그 능력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 자체도 사람의 선천적 불평등을 단호하게 증명한다. 자연스런 평등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갑자기 비진화적으로 실현하면, 문명화된 사람은 원시 시대의 미숙{未熟}한 관습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지만, 각자의 서로 다른 권리가 공평하고 균등하도록 경영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자아_유지를 추구하고, 자아_영속에 참여하게 하고,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자아_만족을 누리도록, 공정하고 평화로운 기회를 자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일이고 의무이며, 이 세 가지 전체가 인간의 행복의 총합이다.

10. 응보의 진화

자연이 처벌{處罰}한다는 것은, 사람이_만든 이론이며;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자연계에서, 응보는 순전히 이론적이고, 완전한 허구{虛構}다. 자연은 오직 한 가지 응보밖에 제공하지 않는다--곧 결과는 원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고안해 낸 응보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점진적 진화의 문제였다. 응보 개념은, 영{靈}이_부여된 정신 속에서 잘 구성될지 모르지만, 공간 세계들에서 온전히_성숙된 상태로 볼썽 나타나지는 않는다.

원시인은 모든 현상을 사람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미개인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누가 죽였는가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할 때, 그 범죄의 동기는 전혀 무시됐으며;판결은 손상된 결과에 따라서 내려졌다.

가장 초기 원시 사회에서는 여론{輿論}이 직접 작용했으므로, 법관이 필요 없었다. 원시인의 생활에는 사생활이 없었다. 한 사람의 행실에 대해 이웃이 책임을 졌으며;따라서 그들은 그의 개인 직무를 살살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공동체는,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각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해서 통제됐다.

유령이 주술사와 사제{司祭}를 통해서 응보를 집행한다는 믿음이 매우 일찍부터 있었으며;이로

born equal.

70:9.16 (794.11) The weak and the inferior have always contended for equal rights; they have always insisted that the state compel the strong and superior to supply their wants and otherwise make good those deficiencies which all too often are the natural result of their own indifference and indolence.

70:9.17 (794.12) But this equality ideal is the child of civilization; it is not found in nature. Even culture itself demonstrates conclusively the inherent inequality of men by their very unequal capacity therefor. The sudden and nonevolutionary realization of supposed natural equality would quickly throw civilized man back to the crude usages of primitive ages. Society cannot offer equal rights to all, but it can promise to administer the varying rights of each with fairness and equity. It is the business and duty of society to provide the child of nature with a fair and peaceful opportunity to pursue self-maintenance, participate in self-perpetua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some measure of self-gratification, the sum of all three constituting human happiness.

10. EVOLUTION OF JUSTICE

70:10.1 (794.13) Natural justice is a man-made theory; it is not a reality. In nature, justice is purely theoretic, wholly a fiction. Nature provides but one kind of justice — inevitable conformity of results to causes.

70:10.2 (794.14) Justice, as conceived by man, means getting one's rights and has, therefore, been a matter of progressive evolution. The concept of justice may well be constitutive in a spirit-endowed mind, but it does not spring full-fledgedly into existence on the worlds of space.

70:10.3 (794.15) Primitive man assigned all phenomena to a person. In case of death the savage asked, not *what* killed him, but *who*? Accidental murder was not therefore recognized, and in the punishment of crime the motive of the criminal was wholly disregarded; judgment wa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injury done.

70:10.4 (795.1) In the earliest primitive society public opinion operated directly; officers of law were not needed. There was no privacy in primitive life. A man's neighbors were responsible for his conduct; therefore their right to pry into his personal affairs. Society was regulated on the theory that the group membership should have an interest in, and some degree of control over, the behavior of each individual.

70:10.5 (795.2) It was very early believed that ghosts administered justice through the medicine men and priests; this constituted these orders the first

말미암아 이 계층들이 최초로 범죄를 탐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게 됐다. 범죄를 탐지하려고 그들이 초기에 사용한 방법은, 독약, 불, 고통 등으로 시험하는 시죄법(試罪法)이었다. 미개한 이 시죄법은, 중재(仲裁)하는 미숙한 기법에 불과했으며; 논쟁을 반드시 정당하게 해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독약을 먹었을 때, 피의자가 그것을 토해내면, 그에게 무죄가 선언됐다.

이런 시죄법 가운데 하나, 즉 부부간의 죄에 대한 시험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비행을 의심하게 되면, 아내를 사제(司祭)에게 데려가서 자신이 의심하는 바를 말했고, 그 후에 사제는 성전 바닥의 먼지와 성수(聖水)로 만들어진 음료수를 준비했다. 험악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적당한 음식을 치른 후에, 고소당한 아내를 그 더러운 음료수를 마셔야만 했다.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물이 여자 속에 들어가 쓴맛을 내고,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허벅다리가 썩게 되고, 여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여자가 이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몸이 아픈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는 남편이 질투심으로 고소했던 죄에서 풀려났다.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이, 범죄를 감지하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한동안 사용했다. 결투(決鬪)하는 것은, 시죄법으로 판결하는 방법이 현대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히브리인 및 기타 약간문명화된 부족들이, 처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원시 기법을 3천 년 전에 사용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사려깊은 사람들이, 신성시되는 수집된 문서에 담겨있는 그런 야만적 유물을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사려 깊게 생각하면, 의심스런 부부간의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판결하는 방법에 관해, 어떤 신성한 존재도 그런 부당한 지침을 필사적 사람에게 결코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공동체는, 일찍부터 보복하는 태도: 즉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방법을 채택했다. 진화하는 부족들 전체가, 피로 보복하는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 복수는 원시 생활의 목표가 됐지만, 종교가 이런 초기 부족 풍습을 크게 변경시켰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주(主)**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을 항상 선포했다. 고대에 자행됐던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문율(不文律)을 핑계 삼아서 저지르는 오늘날의 대량 학살과 아주 다르지는 않았다.

자살은 보복을 위한 비정한 방법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전에 직접 보복할 수 없게 되면,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매우 일반화된 후로, 원수의 문지방 위에서 자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흔히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충분했다. 원시인은 생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

crime detectors and officers of the law. Their early methods of detecting crime consisted in conducting ordeals of poison, fire, and pain. These savage ordeals were nothing more than crude techniques of arbitration; they did not necessarily settle a dispute justly. For example: When poison was administered, if the accused vomited, he was innocent.

70:10.6 (795.3) The Old Testament records one of these ordeals, a marital guilt test: If a man suspected his wife of being untrue to him, he took her to the priest and stated his suspicions, after which the priest would prepare a concoction consisting of holy water and sweepings from the temple floor. After due ceremony, including threatening curses, the accused wife was made to drink the nasty potion. If she was guilty, “the water that causes the curse shall enter into her and become bitter, and her belly shall swell, and her thighs shall rot, and the woman shall be accursed among her people.” If, by any chance, any woman could quaff this filthy draught and not show symptoms of physical illness, she was acquitted of the charges made by her jealous husband.

70:10.7 (795.4) These atrocious methods of crime detection were practiced by almost all the evolving tribes at one time or another. Dueling is a modern survival of the trial by ordeal.

70:10.8 (795.5) It is not to be wondered that the Hebrews and other semicivilized tribes practiced such primitive techniques of justice administration three thousand years ago, but it is most amazing that thinking men would subsequently retain such a relic of barbarism within the pages of a collection of sacred writings. Reflective thinking should make it clear that no divine being ever gave mortal man such unfair instructions regarding the detection and adjudication of suspected marital unfaithfulness.

70:10.9 (795.6) Society early adopted the paying-back attitude of retaliation: an eye for an eye, a life for a life. The evolving tribes all recognized this right of blood vengeance. Vengeance became the aim of primitive life, but religion has since greatly modified these early tribal practices. The teachers of revealed religion have always proclaimed,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Vengeance killing in early times was not altogether unlike present-day murders under the pretense of the unwritten law.

70:10.10 (795.7) Suicide was a common mode of retaliation. If one were unable to avenge himself in life, he died entertaining the belief that, as a ghost, he could return and visit wrath upon his enemy. And since this belief was very general, the threat of suicide on an enemy's doorstep was usually sufficient to bring him to terms. Primitive man did not hold life very dear; suicide over trifles was common, but the teachings of the Dalamatians

암아 이런 관습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여가, 안락함, 종교, 및 철학이 결합해서 인생을 더 감미롭고 매력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단식투쟁은 고대의 이런 복수하는 방법의 현대판이다.

가장 초기에 공식화된 진보된 부족 율법 가운데 하나는, 피 흘리는 반목(反目)을 부족의 용건으로 떠넘기는 것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에도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면 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 아무튼 오늘날 **에스키모**는, 범죄에 대한, 심지어 살인에 대한 벌금형이 여전히 있는데, 범죄를 당한 가족이 판결하고 부과한다.

또 다른 진보는,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 즉 형벌에 대한 규칙이었다. 이 벌금은 최초의 공공(公共) 재산을 형성했다. “피 값”을 지불하는 풍습 역시, 피로 갚는 복수 대신 성행하게 됐다. 그런 손해는 대개 여자 또는 가축으로 갚았으며; 실제 벌금, 즉 범죄에 대한 형벌 대신 화폐로 갚는 일은 훨씬 후대에 이뤄졌다. 그리고 형벌의 관념이 근본적으로 배상(賠償)의 관념으로 바뀐 후부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됐다. **히브리인**은 피 값을 지불하는 풍습을 처음으로 폐지한 민족이었다. **모세**는 “죽을죄를 지은 살인자는 그의 생명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그 다음에는 씨족이, 그리고 후대에는 부족이 처벌을 시행했다. 참된 처벌의 집행은, 복수하는 일이 개인과 친척 집단에서 이양되어, 사회 집단, 즉 국가의 손에 넘겨진 때부터 시작됐다.

산채로 화형 시키는 형벌이 한때 일반 풍습으로 사용됐다.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해서, 고대의 많은 통치자가 이 풍습을 인정했으며, **모세**는 여러 범죄, 특히 성적(性的) 본성이 나쁜 자는 반드시 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제의 딸” 또는 다른 지도자급 시민이 매춘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불로 태우는 것”이 **히브리** 관습이었다.

반역—곧 자기 부족의 동료를 “팔거나” 배반하는 것—은 첫째가는 최고 범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졌고,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사람에게 비슷한 형벌이 집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를 방지하는 면에서, 형벌의 혹독함이 그 확실성과 신속성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동체가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면, 집단적 분노가 대개 사적(私的)인 응징으로 나타나게 돼 있으며; 성역(聖域)에 대한 규정은, 이런 갑작스런 집단적 분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됐다. 사적인 제재와 결투는, 개인이 사사롭게 시정(是正)하는 일을

greatly lessened this custom, while in more recent times leisure, comforts, religion, and philosophy have united to make life sweeter and more desirable. Hunger strikes are, however, a modern analogue of this old-time method of retaliation.

70:10.11 (796.1) One of the earliest formulations of advanced tribal law had to do with the taking over of the blood feud as a tribal affair. But strange to relate, even then a man could kill his wife without punishment provided he had fully paid for her. The Eskimos of today, however, still leave the penalty for a crime, even for murder, to be decreed and administered by the family wronged.

70:10.12 (796.2) Another advance was the imposition of fines for taboo violations, the provision of penalties. These fines constituted the first public revenue. The practice of paying “blood money” also came into vogue as a substitute for blood vengeance. Such damages were usually paid in women or cattle; it was a long time before actual fines, monetary compensation, were assessed as punishment for crime. And since the idea of punishment was essentially compensation, everything, including human life, eventually came to have a price which could be paid as damages. The Hebrews were the first to abolish the practice of paying blood money. Moses taught that they should “take no satisfaction for the life of a murderer, who is guilty of death;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70:10.13 (796.3) Justice was thus first meted out by the family, then by the clan, and later on by the tribe. The administration of true justice dates from the taking of revenge from private and kin groups and lodging it in the hands of the social group, the state.

70:10.14 (796.4) Punishment by burning alive was once a common practice. It was recognized by many ancient rulers, including Hammurabi and Moses, the latter directing that many crimes, particularly those of a grave sex nature, should be punished by burning at the stake. If “the daughter of a priest” or other leading citizen turned to public prostitution, it was the Hebrew custom to “burn her with fire.”

70:10.15 (796.5) Treason — the “selling out” or betrayal of one’s tribal associates — was the first capital crime. Cattle stealing was universally punished by summary death, and even recently horse stealing has been similarly punished. But as time passed, it was learned that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was not so valuable a deterrent to crime as was its certainty and swiftness.

70:10.16 (796.6) When society fails to punish crimes, group resentment usually asserts itself as lynch law; the provision of sanctuary was a means of escaping this sudden group anger. Lynching and dueling represent the unwillingness of the

국가에게 넘겨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individual to surrender private redress to the state.

11. 법률과 법정

새벽에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관행과 율법 사이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사회관행은 발달 과정에 있는 율법과 치안 규칙이다. 오랫동안의 형성 과정이 지나가면, 모호했던 사회관행이 정확한 율법, 명확한 규칙, 그리고 뚜렷한 사회 관례로 구체화된다.

율법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서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지시하는 내용이 된다. 초기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운영됐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과함으로써, 개인에게 살 권리를 부여했다.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가 삭감될 필요가 있으며, 원시 율법인 금기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기의 전체 관념은 본래 부정적인데, 이는 원시 공동체가 그 체제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초기의 처벌 시행이 금기를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이 율법은, 후대의 **히브리인**이 보여줬다시피, 오직 동료 부족민에게만 적용됐는데, **히브리인**은 이방인을 다룰 때에는 다른 윤리 규범을 적용했다.

더 진실하게 증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라마시아** 시대에 맹세가 시작됐다. 그런 맹세는 자신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집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범죄는 부족의 사회관행을 범하는 것이었고, 죄는 유령(幽靈)이 좋아하는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으며, 범죄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다.

이기심이 살인을 금기로 확립했고, 공동체는 이를 전통적 사회관행으로 정당화 시켰으며, 한편 종교는 그 관습을 도덕적 율법으로 신성화 시켰고,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더 안전하고 신성하게 되도록 세 가지 모두가 협력했다. 권리가 종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초기 시대에 공동체는 단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이 도덕과 사회의 경찰 역할을 했다. 고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전통적인 율법, 즉 금기를 신(神)들이 자기 조상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율법은, 오랜 세월의 인간 체험, 즉 구체화되고 공인된 여론이 성문화된 기록이다. 사회관행은 누적된 체험으로 이뤄진 기본 자료였는데, 통치자들은 나중에 이것으로부터 성문법(成文法)을 구체화시켰다. 고대의 재판관에게는 법률이 없었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만 “이것이 관습이라”고 말했다.

11. LAWS AND COURTS

70:11.1 (796.7) It is just as difficult to draw sharp distinctions between mores and laws as to indicate exactly when, at the dawning, night is succeeded by day. Mores are laws and police regulations in the making. When long established, the undefined mores tend to crystallize into precise laws, concrete regulations, and well-defined social conventions.

70:11.2 (796.8) Law is always at first negative and prohibitive; in advancing civilizations it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and directive. Early society operated negatively, granting the individual the right to live by imposing upon all others the command, “you shall not kill.” Every grant of rights or liberty to the individual involves curtailment of the liberties of all others, and this is effected by the taboo, primitive law. The whole idea of the taboo is inherently negative, for primitive society was wholly negative in its organization, and the early administration of justice consisted in the enforcement of the taboos. But originally these laws applied only to fellow tribesmen, as is illustrated by the later-day Hebrews, who had a different code of ethics for dealing with the gentiles.

70:11.3 (797.1) The oath originated in the days of Dalamatia in an effort to render testimony more truthful. Such oaths consisted in pronouncing a curse upon oneself. Formerly no individual would testify against his native group.

70:11.4 (797.2) Crime was an assault upon the tribal mores, sin was the transgression of those taboos which enjoyed ghost sanction, and there was long confusion due to the failure to segregate crime and sin.

70:11.5 (797.3) Self-interest established the taboo on killing, society sanctified it as traditional mores, while religion consecrated the custom as moral law, and thus did all three conspire in rendering human life more safe and sacred. Society could not have held together during early times had not rights had the sanction of religion; superstition was the moral and social police force of the long evolutionary ages. The ancients all claimed that their olden laws, the taboos, had been given to their ancestors by the gods.

70:11.6 (797.4) Law is a codified record of long human experience, public opinion crystallized and legalized. The mores were the raw material of accumulated experience out of which later ruling minds formulated the written laws. The ancient judge had no laws. When he handed down a decision, he simply said, “It is the custom.”

— — — — —

법정이 결정하는 중에 판례{判例}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동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성문화된 법률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이 연속된다는 감명을 주면서, 변화는 사회 조건에 대해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졌다:

1. 분쟁이 일어난 재물을 파괴시킴으로써.
2. 힘으로 --분쟁하는 사람들이 결투로 해결함.
3. 중재로 --제삼자{第三者}가 결정함.
4. 원로들에게 상소함으로써 --나중에는 법정 에 상소함.

초심{初審} 법정, 대항하는 사람들을 주먹 다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고;재판관은 심판원 또는 심판관에 불과했다. 그들은 싸움이 공인된 규정에 의거해서 수행되도록 주선했다. 법정에서 격투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어느 한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각각 재판관에게 비용과 벌금을 제출했다. “힘이 여전히 정의로 통했다.” 그 후에는 언쟁{言爭}이 육체적 싸움을 대체했다.

원시적 응보 관념 전체는, 공정하게 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서, 공중의 무질서와 개인의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오늘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분개하지는 않았으며;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어떤 문명의 상태는, 그 법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한가, 그리고 그 재판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하는가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12. 시민사회 권위의 배분

정부의 진화에서 가장 큰 갈등은 권력의 집중과 관계돼 왔다. 우주 경영자들은, 잘_조화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부서들 사이에 적당한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대의정치 유형의 시민 정부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을 가장 잘 통제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워 왔다.

원시의 권위는 힘, 즉 육체의 능력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상적인 정부는, 역량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정되는 대의정치 체제이며, 야만적 시대에는 한결같이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대의정치를 하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권위의 분할과 지휘계통의 통일 사이에 있었던 오랫동안의 갈등 속에서, 독재자 체제가 선택됐다. 원로들로 구성된 원시 협의회가 가졌던 초기의 산만한 권력이, 절대 군주라는 인물에게 점

70:11.7 (797.5) Reference to precedent in court decisions represents the effort of judges to adapt written laws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society. This provides for progressive adaptation to altering social conditions combined with the impressiveness of traditional continuity.

70:11.8 (797.6) Property disputes were handled in many ways, such as:

- 70:11.9 (797.7) 1. By destroying the disputed property.
- 70:11.10 (797.8) 2. By force — the contestants fought it out.
- 70:11.11 (797.9) 3. By arbitration — a third party decided.
- 70:11.12 (797.10) 4. By appeal to the elders — later to the courts.

70:11.13 (797.11) The first courts were regulated fistic encounters; the judges were merely umpires or referees. They saw to it that the fight was carried on according to approved rules. On entering a court combat, each party made a deposit with the judge to pay the costs and fine after one had been defeated by the other. “Might was still right.” Later on, verbal arguments were substituted for physical blows.

70:11.14 (797.12) The whole idea of primitive justice was not so much to be fair as to dispose of the contest and thus prevent public disorder and private violence. But primitive man did not so much resent what would now be regarded as an injustice;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those who had power would use it selfishly. Nevertheless, the status of any civilization may be very accurately determined by the thoroughness and equity of its courts and by the integrity of its judges.

12. ALLOCATION OF CIVIL AUTHORITY

70:12.1 (797.13) The great struggle in the evolution of government has concern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universe administrators have learned from experience that the evolutionary peoples on the inhabited worlds are best regulated by the representative type of civil government when there is maintained proper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well-co-ordinated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70:12.2 (798.1) While primitive authority was based on strength, physical power, the ideal government is the representative system wherein leadership is based on ability, but in the days of barbarism there was entirely too much war to permit representative government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long struggle between division of authority and unity of command, the dictator won. The early and diffuse powers of the primitive council of elders were

점 더 집중됐다. 실제 왕들이 출현한 후로, 원로 집단은 유사{類似}_입법_및_사법 자문 기관으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했으며;나중에는 대등한 입장의 입법 기관들이 생겨났고, 결국 최고 판결 법정이 입법기관에서 분리되어 확립됐다.

왕은, 사회관행, 즉 본래의 율법 또는 불문율{不文律}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입안된 법, 즉 구체화된 여론을 왕이 집행했다. 비록 더디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론을 제시하기 위한 대중 집회가 큰 사회적 진보를 표시했다.

초기의 왕은, 사회관행--곧 전통 또는 여론--에 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유란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이 사회관행을, 정부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성문화했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는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정부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자체 헌법, 또는 시민사회의 권위와 경영 절차에 관한 기타 헌장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가장 유능하고 덕망 있는 동료들 최고 행정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입법부에 소속되는 대표자들의 경우에는, 지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그런 신성시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고등 법원과 최고 법원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오직 타고난 역량을 부여받고 충분한 체험으로 현명하게 된 자들만 선출돼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유헌장을 채택한 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헌장을 현명하고 지성적이며 담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1. 행정부 또는 입법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장탈함.
2. 무지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선동자{煽動者}들의 술수.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4. 진부한 사람이 지배하는 위기.
5. 부도덕한 소수의 무리가 지배함.
6. 독재자가 되려는 야심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에게 지배됨.
7. 공포로 인한 비참한 혼란.
8. 사악한 자들에게 착취당함.
9. 국가가 세금으로 일반 시민을 노예로 만들.
10. 사회적 및 경제적 공평성의 부족.

gradually concentrated in the person of the absolute monarch. After the arrival of real kings the groups of elders persisted as quasi-legislative-judicial advisory bodies; later on, legislatures of co-ordinate status made their appearance, and eventually supreme courts of adjudication were established separate from the legislatures.

70:12.3 (798.2) The king was the executor of the mores, the original or unwritten law. Later he enforced the legislative enactments, the crystallization of public opinion. A popular assembly as an expression of public opinion, though slow in appearing, marked a great social advance.

70:12.4 (798.3) The early kings were greatly restricted by the mores — by tradition or public opinion. In recent times some Urantia nations have codified these mores into documentary bases for government.

70:12.5 (798.4) Urantia mortals are entitled to liberty; they should create their systems of government; they should adopt their constitutions or other charters of civil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having done this, they should select their most competent and worthy fellows as chief executives. For representatives in the legislative branch they should elect only those who are qualified intellectually and morally to fulfill such sacred responsibilities. As judges of their high and supreme tribunals only those who are endowed with natural ability and who have been made wise by replete experience should be chosen.

70:12.6 (798.5) If men would maintain their freedom, they must, after having chosen their charter of liberty, provide for its wise, intelligent, and fearless interpretation to the end that there may be prevented:

70:12.7 (798.6) 1. Usurpation of unwarranted power by either the executive or legislative branches.

70:12.8 (798.7) 2. Machinations of ignorant and superstitious agitators.

70:12.9 (798.8) 3. Retardation of scientific progress.

70:12.10 (798.9) 4. Stalemate of the dominance of mediocrity.

70:12.11 (798.10) 5. Domination by vicious minorities.

70:12.12 (798.11) 6. Control by ambitious and clever would-be dictators.

70:12.13 (798.12) 7. Disastrous disruption of panics.

70:12.14 (798.13) 8. Exploitation by the unscrupulous.

70:12.15 (798.14) 9. Taxation enslavement of the citizenry by the state.

70:12.16 (798.15) 10. Failure of social and economic fairness.

11. 교회와 국가의 통합.

70:12.17 (798.16) 11. Union of church and state.

12. 개인의 자유를 상실함.

70:12.18 (798.17) 12. Loss of personal liberty.

이것들이, 진화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대의정부{代議政府}라는 기구 위에 군림하는, 합법적 법정을 두는 목적과 목표다.

70:12.19 (798.18) These are the purposes and aims of constitutional tribunals acting as governors upon the engin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on an evolutionary world.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인류의 투쟁은, 경영의 경로를 완전하게 만들고, 항상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그 경로를 적응시키며, 정부 안에서 권력을 더 균형 잡히게 분산시켜야 하며, 그 다음에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을 경영 지도자로 뽑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신성하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계시될 수 없고, 대신에 시간과 공간의 우주 전역에서, 각 행성의 남녀가 서서히 힘겹게 발견해야 한다.

70:12.20 (799.1) Mankind's struggle to perfect government on Urantia has to do with perfecting channels of administration, with adapting them to ever-changing current needs, with improving power distribution within government, and then with selecting such administrative leaders as are truly wise. While there is a divine and ideal form of government, such cannot be revealed but must be slowly and laboriously discovered by the men and women of each planet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70:12.21 (799.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adon.]

제71편. 국가의 발전

⇨ 070

유란시아 책

07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1편
국가의 발전

섹션

소개

1. 국가의 태동
2. 대의정부의 진화
3. 이상적인 국가체제
4. 진취적인 문명
5. 경쟁의 진화
6.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7. 교육
8. 국가체제의 성질

소개

국가는 문명이 유익하게 진화한 결과이며; 전쟁의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사회가 얻은 대표적 순이익{純利益}이다. 심지어 정치적 경륜조차, 투쟁하는 부족들 및 국가들 사이의 경쟁적 무력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누적된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국가는, 집단 권력을 얻으려는 긴 투쟁에서 살아남은 제도다. 강력한 권력이 결국 우세하게 됐고, 시민은 국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절대적 책무의 도덕적 통념{通念}과 함께, 현실의 산물이--곧 국가가-- 생기게 했다. 그러나 국가는 신에게서 기원되지 않으며; 의도적인 총명한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순전히 진화로 형성된 제도이고, 전적으로 자동으로 생겼다.

1. 국가의 태동

국가는 지역별로 사회를 통제하는 조직체이며, 가장 강력하고 능률적이고 영속{永續}하는 국

PAPER 71
DEVELOPMENT OF THE STAT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mbryonic State
2. The Evolution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3. The Ideals of Statehood
4. Progressive Civilization
5. The Evolution of Competition
6. The Profit Motive
7. Education
8. The Character of Statehood

INTRODUCTION

71:0.1 (800.1) THE state is a useful evolution of civilization; it represents society's net gain from the ravages and sufferings of war. Even statecraft is merely the accumulated technique for adjusting the competitive contest of force between the struggling tribes and nations.

71:0.2 (800.2) The modern state is the institution which survived in the long struggle for group power. Superior power eventually prevailed, and it produced a creature of fact — the state — together with the moral myth of the absolute obligation of the citizen to live and die for the state. But the state is not of divine genesis; it was not even produced by volitionally intelligent human action; it is purely an evolutionary institution and was wholly automatic in origin.

1. THE EMBRYONIC STATE

71:1.1 (800.3) The state is a territorial social regulative organization, and the strongest, most

가는, 공통의 언어, 사회관행, 및 제도를 갖는 단일 {單一} 민족으로 이뤄진다.

초기의 국가들은 소규모였고, 모두 정복의 결과였다. 이런 국가는 자발적 연합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공격적 유목민이 세운 국가가 많았고, 그들은 평화로운 목자{牧者} 또는 정착된 농민을 급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곤 했다. 정복의 결과로 형성된 그런 국가는 부득이 계층화됐으며;계급은 불가피했고, 계급 간 투쟁은 항상 선택과 도태로 끝났다.

아메리카의 홍색인 가운데 북쪽 부족들은, 한반도 실제 국가체제를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매우 원시적인 국가 형태인,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체제를 넘어서 발전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가장 다가갔던 것은 **이로쿼이** 연맹{聯盟}이었지만, 여섯 민족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었고 존속하지 못했는데, 현대 국민 생활에 확실히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요소의 부재{不在} 때문이었다:

1. 사유재산{私有財産}의 획득과 상속{相續}.
2. 도시 이외에 농업과 산업.
3. 도움 주는 길들인 동물.
4. 실용적인 가정 조직. 이 홍색인은 모계_가족과 조카 상속을 유지했다.
5. 명확한 영토.
6. 강력한 행정 우두머리.
7. 포로의 노예화--포로를 양자와 양녀로 삼든지, 아니면 대량 학살했다.
8. 과단성 있는 정복.

홍색인은 너무 민주적이었으며;좋은 정부를 가졌지만, 실패했다. 그들이,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정부 형태를 추구하는, 비교적 진보된 백색인 문명과 일찍 충돌하지 않았다면, 결국 국가{國家}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다.

로마 국가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초했다:

1. 부계{父系}_가족.
2. 동물 길들이기와 농업.
3. 인구 집중--도시.
4. 사유재산과 사유지{私有地}.
5. 노예제도--시민권의 여러 등급.
6. 약하고 퇴보된 민족들을 정복하고 재편성함.

efficient, and enduring state is composed of a single nation whose people have a common language, mores, and institutions.

71:1.2 (800.4) The early states were small and were all the result of conquest. They did not originate in voluntary associations. Many were founded by conquering nomads, who would swoop down on peaceful herders or settled agriculturists to overpower and enslave them. Such states, resulting from conquest, were, perforce, stratified; classes were inevitable, and class struggles have ever been selective.

71:1.3 (800.5) The northern tribes of the American red men never attained real statehood. They never progressed beyond a loose confederation of tribes, a very primitive form of state. Their nearest approach was the Iroquois federation, but this group of six nations never quite functioned as a state and failed to surv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certain essentials to modern national life, such as:

- 71:1.4 (800.6) 1. Acquirement and inheritance of private property.
- 71:1.5 (800.7) 2. Cities plus agriculture and industry.
- 71:1.6 (800.8) 3. Helpful domestic animals.
- 71:1.7 (800.9) 4. Practical family organization. These red men clung to the mother-family and nephew inheritance.
- 71:1.8 (800.10) 5. Definite territory.
- 71:1.9 (800.11) 6. A strong executive head.
- 71:1.10 (800.12) 7. Enslavement of captives — they either adopted or massacred them.
- 71:1.11 (800.13) 8. Decisive conquests.

71:1.12 (800.14) The red men were too democratic; they had a good government, but it failed. Eventually they would have evolved a state had they not prematurely encountered the more advanced civilization of the white man, who was pursuing the governmental methods of the Greeks and the Romans.

71:1.13 (801.1) The successful Roman state was based on:

- 71:1.14 (801.2) 1. The father-family.
- 71:1.15 (801.3) 2. Agriculture and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 71:1.16 (801.4) 3. Condensation of population — cities.
- 71:1.17 (801.5) 4. Private property and land.
- 71:1.18 (801.6) 5. Slavery — classes of citizenship.
- 71:1.19 (801.7) 6. Conquest and reorganization of weak and backward peoples.

7. 도로망이 구축된 명확한 영토.

71:1.20 (801.8) 7. Definite territory with roads.

8. 친히 강력하게 다스리는 통치자.

71:1.21 (801.9) 8. Personal and strong rulers.

로마 문명에서 가장 취약했던 점, 그리고 제국이 완전히 붕괴된 요인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착각하는 제도였는데, 소년이 스물한 살에 이르면 부권(父權)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소녀를 무조건 풀어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거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부도덕하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했다.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은 이런 개혁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한, 갑작스럽고 대규모적인 방법에 있었다. **로마**의 멸망은, 한 국가가 너무 빨리 확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

71:1.22 (801.10) The great weakness in Roman civilization, and a factor in the ultimate collapse of the empire, was the supposed liberal and advanced provision for the emancipation of the boy at twenty-one and the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girl so that she was at liberty to marry a man of her own choosing or to go abroad in the land to become immoral. The harm to society consisted not in these reforms themselves but rather in the sudden and extensive manner of their adoption. The collapse of Rome indicates what may be expected when a state undergoes too rapid extension associated with internal degeneration.

국가의 태동(胎動)은, 지역적 결합이 이뤄지도록 핏줄 결합이 쇠퇴함으로써 가능하게 됐고, 그런 부족들 간 연맹은 대개 정복으로 견고하게 됐다. 모든 사소한 갈등과 집단 간 차이점을 초월하는 하나의 주권이 참된 국가의 특질이지만, 여러 계층과 계급제도가, 옛 시대의 씨족과 부족들의 잔재로서 후대의 국가 조직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큰 영토를 가진 후대의 국가들은, 핏줄이 같은 그보다 작은 이 씨족 집단들과 오랫동안 고통스런 투쟁을 겪어왔는데, 부족 정부는 가족으로부터 국가 권위로 넘어가는, 가치 있는 과도기인 것이 입증됐다. 후대의 시기에는, 무역 및 다른 산업 연합체들로부터 여러 씨족 집단이 생겨나게 됐다.

71:1.23 (801.11) The embryonic state was made possible by the decline of the blood bond in favor of the territorial, and such tribal federations were usually firmly cemented by conquest. While a sovereignty that transcends all minor struggles and group differences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true state, still, many classes and castes persist in the later state organizations as remnants of the clans and tribes of former days. The later and larger territorial states had a long and bitter struggle with these smaller consanguineous clan groups, the tribal government proving a valuable transition from family to state authority. During later times many clans grew out of trades and other industrial associations.

국가 형태로 통합되지 못하면,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봉건제도처럼, 국가 이전(以前)의 통치 기법 상태로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암흑기 동안에 지역 국가는 멸망했고, 성(城)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들, 즉 씨족과 부족이 발전되던 단계가 재현되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와 비슷한 준국가(準國家)들이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 전부가 진화에서 후퇴함으로써 형성된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 장차 국가로 태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71:1.24 (801.12) Failure of state integration results in retrogression to prestate conditions of governmental techniques, such as the feudalism of the European Middle Ages. During these dark ages the territorial state collapsed, and there was a reversion to the small castle groups, the reappearance of the clan and tribal stages of development. Similar semistates even now exist in Asia and Africa, but not all of them are evolutionary reversions; many are the embryonic nucleuses of states of the future.

2. 대의정부의 진화

2. THE EVOLUTION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민주주의는 이상(理想)이지만, 문명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춰라! 신중히 선택하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험성 때문이다:

71:2.1 (801.13) Democracy, while an ideal, is a product of civilization, not of evolution. Go slowly! select carefully! for the dangers of democracy are:

1. 평범함을 찬미함.

71:2.2 (801.14) 1. Glorification of mediocrity.

2. 밑바닥의 무식한 통치자를 선택함.

71:2.3 (801.15) 2. Choice of base and ignorant rulers.

3. 사회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함.

71:2.4 (801.16) 3. Failure to recognize the basic facts of social evolution.

4. 무지하고 나태한 다수파에게 맡겨진 보편

71:2.5 (801.17) 4. Danger of universal suffrage in the

적 선거권의 위험성.

5. 여론에 노예가 됨; 다수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

여론, 즉 일반 의견은 항상 사회를 지체시키며; 그럼에도 여론은 유익한데, 사회의 진화 속도를 늦추지만, 문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교육하는 것만이, 문명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참된 유일한 방법이며; 강압은 임시 편법에 지나지 않고, 총알 대신 비밀 투표를 할 때, 문명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여론, 즉 사회관행은, 사회 진화와 국가 발전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동력이지만;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폭력을 쓰지 않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여론이 개인의 습성과 국가의 규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직접 결정된다. 참되게 문명화된 정부는, 여론이 개인 선거권의 힘을 갖췄을 때 이뤄져 왔다. 대중의 투표가 어떤 일을 항상 올바르게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쁘게 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진화는 단숨에 최상의 완전성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이고 발전적인 실용적 조절을 이룩한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대의정부가 진화하는 데는, 10개의 계단, 즉 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農奴}제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속박이 사라져야 한다.

2. *정신의 자유*.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교육을--곧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유는 대개 유익보다 해를 끼친다.

3. *법의 지배*. 용인된 기본 법률에 따르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 통치자의 의지와 변덕스러움을 대체시킬 경우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 모든 형태에서 인간의 열망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의정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5. *재산의 안전 보장*.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 통제, 증여, 판매, 대여, 및 상속할 권리를 열망한다.

6.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대의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원은 자유 시민권의 고유한 특권이다.

7.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듣는 것만으

hands of uneducated and indolent majorities.

71:2.6 (801.18) 5. Slavery to public opinion; the majority is not always right.

71:2.7 (802.1) Public opinion, common opinion, has always delayed society; nevertheless, it is valuable, for, while retarding social evolution, it does preserve civilization. Education of public opinion is the only safe and true method of accelerating civilization; force is only a temporary expedient, and cultural growth will increasingly accelerate as bullets give way to ballots. Public opinion, the mores, is the basic and elemental energy in social evolution and state development, but to be of state value it must be nonviolent in expression.

71:2.8 (802.2) The measure of the advance of society is directly determined by the degree to which public opinion can control personal behavior and state regulation through nonviolent expression. The really civilized government had arrived when public opinion was clothed with the powers of personal franchise. Popular elections may not always decide things rightly, but they represent the right way even to do a wrong thing. Evolution does not at once produce superlative perfection but rather comparative and advancing practical adjustment.

71:2.9 (802.3) There are ten steps, or stages, to the evolution of a practical and efficient form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ese are:

71:2.10 (802.4) 1. *Freedom of the person*. Slavery, serfdom, and all forms of human bondage must disappear.

71:2.11 (802.5) 2. *Freedom of the mind*. Unless a free people are educated — taught to think intelligently and plan wisely — freedom usually does more harm than good.

71:2.12 (802.6) 3. *The reign of law*. Liberty can be enjoyed only when the will and whims of human rulers are replaced by legislative enactments in accordance with accepted fundamental law.

71:2.13 (802.7) 4. *Freedom of speech*.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unthinkable without freedom of all forms of expression for human aspirations and opinions.

71:2.14 (802.8) 5. *Security of property*. No government can long endure if it fails to provide for the right to enjoy personal property in some form. Man craves the right to use, control, bestow, sell, lease, and bequeath his personal property.

71:2.15 (802.9) 6. *The right of petition*. Representative government assumes the right of citizens to be heard. The privilege of petition is inherent in free citizenship.

71:2.16 (802.10) 7. *The right to rule*. It is not enough to

로는 부족하며;청원의 힘은 정부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

8. **보통 선거권.** 대의정부는 지성적이고 유능한 보통 선거권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 정부의 특징은, 정부를 구성하는 자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서 늘 결정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선거권은 남녀에게 보편적으로 남아있지만, 효과적으로 변경되고, 재편성되며, 달리 차별화될 것이다.

9. **공무원에 대한 통제.** 시민이 공무원과 국가기관원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현명한 기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시민 정부도 쓸모없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10. **지성적이고 훈련된 대표자.**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대의정부의 성공에 달려있으며;기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적합한 개인들만 관공서 직원으로 선출하는 풍습에 따라서 좌우된다. 오직 그런 준비가 갖추졌을 때에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

be heard; the power of petition must progress to the actual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71:2.17 (802.11) 8. *Universal suffrage.* Representative government presupposes an intelligent, efficient, and universal electorate. The character of such a government will ever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and caliber of those who compose it. As civilization progresses, suffrage, while remaining universal for both sexes, will be effectively modified, regrouped, and otherwise differentiated.

71:2.18 (802.12) 9. *Control of public servants.* No civil government will be serviceable and effective unless the citizenry possess and use wise techniques of guiding and controlling officeholders and public servants.

71:2.19 (802.13) 10. *Intelligent and trained representation.* The survival of democracy is dependent on successful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at is conditioned upon the practice of electing to public offices only those individuals who are technically trained, intellectually competent, socially loyal, and morally fit. Only by such provisions can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be preserved.

3. 이상적인 국가체제

만일 문명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본질적인 것들--곧 자유, 안전, 교육, 및 사회적 조정--을 제공한다면, 한 정부의 정치 또는 경영 형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사회의 진화 과정은, 국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이 예가 되듯이, 어떤 국가도 시민의 도덕적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한다. 무지와 이기심은, 아무리 높은 유형의 정부라도 반드시 몰락시킬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민족적 이기주의는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선민{選民}이라는 신조는, 부족의 결합과 국가 건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왔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편협성이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국가도 이상적인 수준의 기능발휘에 도달할 수 없으며;인간의 진보에 영구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과학, 상업, 놀이, 및 종교를 조정하는 것이 편협성을 가장 잘 물리친다.

이상적인 국가는, 강력하고 조화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구의 자극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한다:

1. 인간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

2. 현명한 이상{理想}을 기초로 하는, 지성적 애국심.

3. THE IDEALS OF STATEHOOD

71:3.1 (803.1) Th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form of a government is of little consequence provided it affords the essentials of civil progress — liberty, security, education, and social co-ordination. It is not what a state is but what it does that determines the course of social evolution. And after all, no state can transcend the moral values of its citizenry as exemplified in their chosen leaders. Ignorance and selfishness will insure the downfall of even the highest type of government.

71:3.2 (803.2) Much as it is to be regretted, national egotism has been essential to social survival. The chosen people doctrine has been a prime factor in tribal welding and nation building right on down to modern times. But no state can attain ideal levels of functioning until every form of intolerance is mastered; it is everlastingly inimical to human progress. And intolerance is best combated by the co-ordination of science, commerce, play, and religion.

71:3.3 (803.3) The ideal state functions under the impulse of three mighty and co-ordinated drives:

71:3.4 (803.4) 1. Love loyalty derived from the realization of human brotherhood.

71:3.5 (803.5) 2. Intelligent patriotism based on wise ideals.

3. 행성의 현실, 필요성, 및 목표 관점에서 해석한, 시공우주 통찰력.

이상적 국가의 법률은 숫자가 매우 적으며, 하지 말라는 금기 시대를 지나서, 자아-통제가 향상된 결과로, 개인의 자유가 분명히 진보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높은 수준에 이른 국가는 시민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재촉할 뿐만 아니라, 기계 시대로 진보함으로써 고된 일로부터 해방된 결과로 얻는 점증적 여가시간을, 유익하고 고상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여가시간은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나태함을 허용하거나 빈곤을 묵인하는 한, 어떤 사회도 멀리까지 진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불완전하고 퇴화된 혈통의 사람들이, 값없이 후원 받고 아무 제한 없이 아이를 낳도록 허용한다면, 빈곤과 의존 상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사회는, 자체 시민의 자존감을 보존하고, 모든 정상적인 개인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적 성취 계획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최소한의 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 차원의 감독으로, 사회의 진화가 촉진돼야만 할 것이다. 가장 적게 다스리면서, 가장 잘 조정하는 국가가 최상의 국가다.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시민 의식(意識), 즉 사회봉사의 책무와 특권에 대한 인식(認識)이 완전한 성장과 진화로 달성돼야 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이권(利權) 운동가들의 경영 목표를 뒤쫓아 가는 어떤 의무로 간주하지만, 나중에는 특권으로, 즉 가장 큰 명예로 그런 직책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수준이든지 문명 상태는, 국가체제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의 됨됨이가 정확하게 나타낸다.

국민의 모든 다른 형태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공화국(共和國)에서는 도시와 지방을 통치하는 직무를 전문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진보된 국가에서는, 정치에 이바지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가장 고상한 헌신으로 존중된다.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시민의 가장 큰 야망은, 시민 사회의 인정을 얻는 것, 즉 정부가 위탁하는 어떤 지위에 발탁되거나 지정되는 것이며, 그런 정부는 봉사를 인정하는 최고의 명예를 공무원이나 사회 봉사자에게 수여한다. 그 다음 명예는, 철학자, 교육자, 과학자, 산업인, 및 군인에게 수여된다. 부모는 자녀의 우수성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순전히 종교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나라의 대사(大使)이므로, 다음 세상에서 참된 보상을 받는다.

71:3.6 (803.6) 3. Cosmic insight interpreted in terms of planetary facts, needs, and goals.

71:3.7 (803.7) The laws of the ideal state are few in number, and they have passed out of the negativistic taboo age into the era of the positive progress of individual liberty consequent upon enhanced self-control. The exalted state not only compels its citizens to work but also entices them into profitable and uplifting utilization of the increasing leisure which results from toil liberation by the advancing machine age. Leisure must produce as well as consume.

71:3.8 (803.8) No society has progressed very far when it permits idleness or tolerates poverty. But poverty and dependence can never be eliminated if the defective and degenerate stocks are freely supported and permitted to reproduce without restraint.

71:3.9 (803.9) A moral society should aim to preserve the self-respect of its citizenry and afford every normal individual adequate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Such a plan of social achievement would yield a cultural society of the highest order. Social evolution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al supervision which exercises a minimum of regulative control. That state is best which co-ordinates most while governing least.

71:3.10 (803.10) The ideals of statehood must be attained by evolution, by the slow growth of civic consciousness, the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and privilege of social service. At first men assume the burdens of government as a duty, following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of political spoilsmen, but later on they seek such ministry as a privilege, as the greatest honor. The status of any level of civilization is faithfully portrayed by the caliber of its citizens who volunteer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hood.

71:3.11 (803.11) In a real commonwealth the business of governing cities and provinces is conducted by experts and is managed just as are all other forms of economic and commercial associations of people.

71:3.12 (803.12) In advanced states, political service is esteemed as the highest devotion of the citizenry. The greatest ambition of the wisest and noblest of citizens is to gain civil recognition, to be elected or appointed to some position of governmental trust, and such governments confer their highest honors of recognition for service upon their civil and social servants. Honors are next bestowed in the order named upon philosophers, educators, scientists, industrialists, and militarists. Parents are duly rewarded by the excellency of their children, and purely religious leaders, being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receive their real rewards in another world.

4. 진취적인 문명

경제, 사회, 및 정부는, 존속되려면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정지된 상태는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직 진화의 흐름과 함께 전진하는 제도만 살아남는다.

확장하는 문명의 진취적 계획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1. 개인적 자유의 보존
2. 가정의 보호.
3. 경제적 안전의 증진.
4. 질병 예방.
5. 의무 교육.
6. 의무 고용.
7. 여가 시간의 유익한 활용.
8. 불운한 자들을 보살핌.
9. 인종 개량.
10. 과학과 예술의 증진.
11. 철학--곧 지혜--의 진흥.
12. 시공우주 통찰력--곧 영성(靈性)--의 증대.

그리고 문명의 기술에서 이런 진보는 필사자의 노력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답고 신성한 목표의 실현으로--곧 사람의 형제관계와, **하나님**을_의식하는 개인적 상태를 사회에서 성취함으로-- 직접 이끌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존귀한 열망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진정한 형제관계의 출현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상태에 사회 체제가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그들은 황금을 실천하기를 실제로 원한다. 그러나 허약한 자 또는 사악한 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는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점을, 불공정하게 그리고 터무니없이 취하려고 기다리는 한, 그런 이상적(理想的)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직 한 과정만 실용적인데: “황금을 따르는 사람”은, 평화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을 이용해먹거나, 아니면 진보하는 문명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뒤떨어진 동료들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상(理想)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진취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더 열등한 계층의 인간에게 멸망당하도록 각 세대의 이상주의자들이 스스로 허용한다면, 이상주의는 진화하는 행성에서 존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주의의 가장 큰 시험은 다음과 같다: 이기

4. PROGRESSIVE CIVILIZATION

71:4.1 (804.1) Economics, society, and government must evolve if they are to remain. Static conditions on an evolutionary world are indicative of decay; only those institutions which move forward with the evolutionary stream persist.

71:4.2 (804.2) The progressive program of an expanding civilization embraces:

71:4.3 (804.3) 1.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berties.

71:4.4 (804.4) 2. Protection of the home.

71:4.5 (804.5) 3. Promotion of economic security.

71:4.6 (804.6) 4. Prevention of disease.

71:4.7 (804.7) 5. Compulsory education.

71:4.8 (804.8) 6. Compulsory employment.

71:4.9 (804.9) 7. Profitable utilization of leisure.

71:4.10 (804.10) 8. Care of the unfortunate.

71:4.11 (804.11) 9. Race improvement.

71:4.12 (804.12) 10. Promotion of science and art.

71:4.13 (804.13) 11. Promotion of philosophy — wisdom.

71:4.14 (804.14) 12. Augmentation of cosmic insight — spirituality.

71:4.15 (804.15) And this progress in the arts of civilization lead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the highest human and divine goals of mortal endeavor — the social achievement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the personal status of God-consciousness, which becomes revealed in the supreme desire of every individual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71:4.16 (804.16) The appearance of genuine brotherhood signifies that a social order has arrived in which all men delight in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they actually desire to practice the golden rule. But such an ideal society cannot be realized when either the weak or the wicked lie in wait to take unfair and unholy advantage of those who are chiefly actuated by devotion to the service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n such a situation only one course is practical: The “golden rulers” may establish a progressive society in which they live according to their ideals while maintaining an adequate defense against their benighted fellows who might seek either to exploit their pacific predilections or to destroy their advancing civilization.

71:4.17 (804.17) Idealism can never survive on an evolving planet if the idealists in each generation permit themselves to be exterminated by the baser orders of humanity. And here is the great test of

적 이득을 목적으로, 또는 나라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작전에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진보하는 한 사회가,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대비태세가 필요하며, 종교적 이상주의만이, 대비태세를 침략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사랑과 형제관계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5. 경쟁의 진화

경쟁은 사회 진보에 필수이지만, 규제받지 않는 경쟁은 폭력을 유발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경쟁은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개인의 자리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전쟁을 서서히 대신하고 있다. (사회관행 앞에서는 살인과 전쟁이 다른데, 살인은 사회의 초기 시대 이후로 금지된 반면,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상적 국가는, 개별 경쟁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거하고, 개인의 주도권에서 불공정함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사회 행위를 규제한다. 국가체제의 큰 문제가 여기 있다: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업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동시에, 세금 징수가 산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국가가 기생충이나 폭군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어느 세상에서든지 그 초기 시대 내내, 경쟁은 진보하는 문명에 필수 요소다. 사람의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협동이 점점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진보된 문명사회에서는, 협동이 경쟁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초기의 사람은 경쟁으로 자극을 받는다. 초기 진화의 특징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만, 영리한 협동, 이해심 있는 우애, 그리고 영적 형제관계가, 후대의 문명을 더 잘 증진시킨다.

사실, 산업사회에서 경쟁은 매우 낭비적이고 심히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장치를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이든지, 개인의 기본 자유를 조금이라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노력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

6.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봉사하려는 동기로 인해 증대될 수 없다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날의 경제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기초한 무자비한 경쟁은, 경쟁이 유지하

idealism: Can an advanced society maintain that military preparedness which renders it secure from all attack by its war-loving neighbors without yielding to the temptation to employ this military strength in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other peoples for purposes of selfish gain or national aggrandizement? National survival demands preparedness, and religious idealism alone can prevent the prostitution of preparedness into aggression. Only love, brotherhood, can prevent the strong from oppressing the weak.

5. THE EVOLUTION OF COMPETITION

71:5.1 (805.1) Competition is essential to social progress, but competition, unregulated, breeds violence. In current society, competition is slowly displacing war in that it determines the individual's place in industry, as well as decreeing the survival of the industries themselves. (Murder and war differ in their status before the mores, murder having been outlawed since the early days of society, while war has never yet been outlawed by mankind as a whole.)

71:5.2 (805.2) The ideal state undertakes to regulate social conduct only enough to take violence out of individual competition and to prevent unfairness in personal initiative. Here is a great problem in statehood: How can you guarantee peace and quiet in industry, pay the taxes to support state power,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taxation from handicapping industry and keep the state from becoming parasitical or tyrannical?

71:5.3 (805.3)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y world, competition is essential to progressive civilization. As the evolution of man progresses, co-operation becomes increasingly effective. In advanced civilizations co-operation is more efficient than competition. Early man is stimulated by competition. Early 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survival of the biologically fit, but later civilizations are the better promoted by intelligent co-operation, understanding fraternity, and spiritual brotherhood.

71:5.4 (805.4) True, competition in industry is exceedingly wasteful and highly ineffective, but no attempt to eliminate this economic lost motion should be countenanced if such adjustments entail even the slightest abrogation of any of the basic liberties of the individual.

6. THE PROFIT MOTIVE

71:6.1 (805.5) Present-day profit-motivated economics is doomed unless profit motives can be augmented by service motives. Ruthless competition based on narrow-minded self-interest

려는 것마저 결국 파괴한다. 오로지 자기만을_위한 이익의 동기는, **그리스도교**의 이상{理想}과 모순된다--**예수**의 교훈과는 훨씬 더 모순된다.

경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의 관계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갑자기 파괴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그런 동기가 없으면 나타낼 그런 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어쨌든, 사회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자극제의 목적이 언제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진보된 사회 체제에서는, 경제 활동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전체적으로 천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그럼에도, 그 동기는 문명의 초기 단계 내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사람들이 경제적 노력과 사회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유형의 비영리를 추구하려는 동기를--곧 최상의 지혜, 흥미로운 형제관계, 및 탁월한 영적 달성을 얻으려는 초월적 충동을--단단히 붙잡게 될 때까지,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제거해서는 안 된다.

is ultimately destructive of even those things which it seeks to maintain. Exclusive and self-serving profit motivation is incompatible with Christian ideals — much more incompatible with the teachings of Jesus.

71:6.2 (805.6) In economics, profit motivation is to service motivation what fear is to love in religion. But the profit motive must not be suddenly destroyed or removed; it keeps many otherwise slothful mortals hard at work. It is not necessary, however, that this social energy arouser be forever selfish in its objectives.

71:6.3 (805.7) The profit motive of economic activities is altogether base and wholly unworthy of an advanced order of society; nevertheless, i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hroughout the earlier phases of civilization. Profit motivation must not be taken away from men until they have firmly possessed themselves of superior types of nonprofit motives for economic striving and social serving — the transcendent urges of superlative wisdom, intriguing brotherhood, and excellency of spiritual attainment.

7. 교육

영속하는 국가는, 문화에 기초를 두고, 이상{理想}에 지배되며, 봉사로 인해 자극 받는다. 교육의 목적은, 솜씨 습득, 지혜 추구, 자아성의 실현, 및 영적 가치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평생토록 교육이 계속되고, 때로는 철학{哲學}이 시민의 주요 추구 대상이 된다. 그런 나라의 시민은, 인간관계의 중요성, 실체에 대한 의미, 가치의 고결함, 삶의 목표, 그리고 시공우주의 영광스런 운명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지혜를 추구한다.

유란시아인은 새롭고 더 높은 문명사회를 이루는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순전히 이익추구를_동기로_삼는 경제 체제가 물려감에 따라서, 교육은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교육은, 지방색, 군국주의, 자기 찬미, 그리고 성공 추구에 너무 오래 매달려 왔지만;결국에는 반드시 세계적이고, 이상적이며, 자아를_실현하고, 시공우주를 파악하게 돼야 한다.

요즈음에, 교육은 성직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법률가와 사업가의 통제를 받게 됐다. 결국은 교육이 철학자와 과학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주된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선생은 반드시 자유로운 존재, 즉 참된 지도자가 돼야 한다.

교육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며;평생 계속돼야 하며, 그리하여 인류는 다음과 같이 높아지는 수준의 필사자 지혜를 점점 더 체험해야 한다:

7. EDUCATION

71:7.1 (806.1) The enduring state is founded on culture, dominated by ideals, and motivated by service. The purpose of education should be acquirement of skill, pursuit of wisdom, realization of selfhood, and attainment of spiritual values.

71:7.2 (806.2) In the ideal state, education continues throughout life, and philosophy sometime becomes the chief pursuit of its citizens. The citizens of such a commonwealth pursue wisdom as an enhancement of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of human relations, the meanings of reality, the nobility of values, the goals of living, and the glories of cosmic destiny.

71:7.3 (806.3) Urantians should get a vision of a new and higher cultural society. Education will jump to new levels of value with the passing of the purely profit-motivated system of economics. Education has too long been localistic, militaristic, ego exalting, and success seeking; it must eventually become world-wide, idealistic, self-realizing, and cosmic grasping.

71:7.4 (806.4) Education recently passed from the control of the clergy to that of lawyers and businessmen. Eventually it must be given over to the philosophers and the scientists. Teachers must be free beings, real leaders, to the end that philosophy, the search for wisdom, may become the chief educational pursuit.

71:7.5 (806.5) Education is the business of living; it must continue throughout a lifetime so that mankind may gradually experience the ascending

1. 사물에 관한 지식.
2. 의미를 깨달음.
3. 가치를 인식함.
4. 일의 고결함 --의무.
5.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 --도덕성.
6.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성품.
7. 시공우주 통찰력 --영적 분별.

그렇게 되면, 이런 성취를 통해서, 필사자의 궁극적 정신 달성,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8. 국가체제의 성질

어떤 인간 정부든지 유일하게 신성시되는 모습은, 행정, 입법, 및 사법 기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국가체제가 분할되는 것이다. 우주는, 기능과 권위를 그렇게 분리하는 계획에 따라서 경영된다. 효과적인 사회 규칙 또는 시민 정부에 대한 이런 신성한 개념을 제외하고, 시민이 더욱 자기를 통제하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면, 한 민족이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민족의 지적 예리함, 경제적 지혜, 사회적 영리함, 및 도덕적 지구력(持久力)은 모두 국가체제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국가체제의 진화는 다음과 같이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진보할 필요가 있다:

1.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라는 삼중적 정부를 창설함.
2. 사회, 정치, 및 종교 활동의 자유.
3.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인간 속박의 철폐.
4. 세금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
5. 보편적 교육 체제 설립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학습.
6. 지역 정부와 국가 정부 사이의 적절한 조정.
7. 과학 육성과 질병 퇴치.
8. 남녀평등을 당연히 여김, 그리고 산업과 정부에서 여자들이 특화된 봉사를 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학교, 및 교회에서 남녀가 조화롭게 활동

levels of mortal wisdom, which are:

- 71:7.6 (806.6) 1. The knowledge of things.
- 71:7.7 (806.7) 2. The realization of meanings.
- 71:7.8 (806.8) 3. The appreciation of values.
- 71:7.9 (806.9) 4. The nobility of work — duty.
- 71:7.10 (806.10) 5. The motivation of goals — morality.
- 71:7.11 (806.11) 6. The love of service — character.
- 71:7.12 (806.12) 7. Cosmic insight — spiritual discernment.
- 71:7.13 (806.13) And then, by means of these achievements, many will ascend to the mortal ultimate of mind attainment, God-consciousness.

8. THE CHARACTER OF STATEHOOD

71:8.1 (806.14) The only sacred feature of any human government is the division of statehood into the three domains of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functions. The universe i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a plan of segregat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Aside from this divine concept of effective social regulation or civil government, it matters little what form of state a people may elect to have provided the citizenry is ever progressing toward the goal of augmented self-control and increased social service. The intellectual keenness, economic wisdom, social cleverness, and moral stamina of a people are all faithfully reflected in statehood.

71:8.2 (806.15) The evolution of statehood entails progress from level to level, as follows:

- 71:8.3 (806.16) 1. The creation of a threefold government of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 71:8.4 (806.17) 2. The freedom of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activities.
- 71:8.5 (807.1) 3. The abolition of all forms of slavery and human bondage.
- 71:8.6 (807.2) 4. The ability of the citizenry to control the levying of taxes.
- 71:8.7 (807.3) 5.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education — learning extended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 71:8.8 (807.4) 6. The proper adjustment betwee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 71:8.9 (807.5) 7. The fostering of science and the conquest of disease.
- 71:8.10 (807.6) 8. The due recognition of sex equality and the co-ordinated functioning of men and women in the home, school, and church, with

함.

9. 기계의 발명 그리고 차후의 기계시대를 정복함으로써, 힘들여 일하는 노예 상태를 제거함.

10. 방언들을 정복함--보편적 언어의 승리.

11. 전쟁이 사라짐--여러 국가의 대륙{大陸}의 법정(法院)이 국가와 종족의 의견 차이를 국제적으로 판결하던 것을, 대륙의 법정에서 정기적으로 물러난 지도자들로부터 자동으로 보충된 최고 행성 재판소가 관장함. 대륙의 법정은 권위적이고;범세계 법정은 권고한다--훈계적이다.

12.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철학이 찬미 받음. 세계적인 한 종교의 진화, 이것은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예시할 것이다.

이것들이 진취적인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이상적인 국가체제의 특징이다. **유란시아**는 이런 고양된 이상{理想}의 실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명화된 인종들이 태동되고 있다--인류는 더 높은 진화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후원했음]

specialized service of women in industry and government.

71:8.11 (807.7) 9. The elimination of toiling slavery by machine invention and the subsequent mastery of the machine age.

71:8.12 (807.8) 10. The conquest of dialects — the triumph of a universal language.

71:8.13 (807.9) 11. The ending of war — international adjudication of national and racial differences by continental courts of nations presided over by a supreme planetary tribunal automatically recruited from the periodically retiring heads of the continental courts. The continental courts are authoritative; the world court is advisory — moral.

71:8.14 (807.10) 12. The world-wide vogue of the pursuit of wisdom — the exaltation of philosophy. The evolution of a world religion, which will presage the entrance of the planet upon the earlier phases of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71:8.15 (807.11) These are the prerequisites of progressive government and the earmarks of ideal statehood. Urantia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these exalted ideals, but the civilized races have made a beginning — mankind is on the march toward higher evolutionary destinies.

71:8.16 (807.12) [Sponsor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72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 071

유란시아 책

07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2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섹션

소개

1. 대륙 국가
2. 정치 조직
3. 가정생활
4. 교육 체계
5. 산업 구조
6. 노후 대책 보험
7. 세금징수
8. 특별 학부
9. 보통 선거권 방식
10. 범죄에 대한 조치
11. 군대의 전시대비책
12. 다른 나라들

소개

나는, **라나휘지**의 허락을 받고, **에덴시아 지고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타니아** 체계에 소속되고 그리 멀지 않은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진보된 인간 종족의 사회, 도덕, 및 정치 생활 가운데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루시퍼의 반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격리됐던 **사타니아**의 전체 세계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매우 비슷한 역사를 경험해 왔다. 이 두 구체{球體}의 유사성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소개를 허락했음이 분명한데, 어느 한 행성의 직무를 다른 행성에 설명하도록 동의하는 것은, 체계 통치자들에게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역과 관련하여 그 **행성 왕자**가 불충{不忠}함으

PAPER 72
GOVERNMENT ON A NEIGHBORING
PLANE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ontinental Nation
2. Political Organization
3. The Home Life
4. The Educational System
5. Industrial Organization
6. Old-Age Insurance
7. Taxation
8. The Special Colleges
9. The Plan of Universal Suffrage
10. Dealing with Crime
11. Military Preparedness
12. The Other Nations

INTRODUCTION

72:0.1 (808.1) BY PERMISSION of Lanaforge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I am authorized to narrate something of the social, moral, and political life of the most advanced human race living on a not far-distant planet belonging to the Satania system.

72:0.2 (808.2) Of all the Satania worlds which became isolated because of participation in the Lucifer rebellion, this planet has experienced a history most like that of Urantia. The similarity of the two spheres undoubtedly explains why permission to make this extraordinary presentation was granted, for it is most unusual for the system rulers to consent to the narration on one planet of the affairs of another.

72:0.3 (808.3) This planet, like Urantia, was led astray by the disloyalty of its Planetary Prince in

로 말미암아 배반으로 인도됐다. 거기 있는 필사 인종들에게 **집정관 아들**이 증여된 적이 없었으므로,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체에도 **물질 아들**이 왔고, 이 **아들** 역시 태만해서, 그 구체가 격리되도록 만들었다.

1. 대륙 국가

이 행성의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오스트랄리아**와 비슷한 크기의 독립된 한 대륙(大陸)에서, 매우 우세한 문명이 진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이다. 그 민족은 혼합된 인종이고, 청색인과 황색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란시아**에서 백인종이라고 불리는 인종보다, 약간 더 많은 보라색 인종 성분을 갖고 있다. 이 다양한 인종은 아직 충분히 섞이지 않았지만, 매우 기꺼이 사귀고 교제한다. 이 대륙에서 평균 수명은 지금 90세인데, 그 행성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약 15 퍼센트 높다.

이 나라의 산업 구조는,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큰 혜택을 누린다. 높은 산악지대에는 1년에 여덟 달 비가 내리며, 그 나라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자연 조건은, 수력 발전의 활용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대륙의 비교적 건조한 서쪽 4분의 1에 엄청난 양의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접 국가들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들의 천연자원은 풍부하며, 생활필수품의 결핍을 과학 기법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국내 교역은 활발하지만, 그들보다 덜 진보된 이웃 국가들의 전반적인 호전성 때문에, 국제 무역은 거의 없다.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그 행성의 진화 경향을 따랐는데: 부족국가 단계에서 강력한 통치자와 왕이 출현하는 단계까지, 수천 년이 소요됐다. 절대 군주제가 있는 후에, 다른 여러 정부 체제가 이어졌다--곧 미숙한 상태의 공화정치, 공동 국가 체제, 그리고 독재 정권이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런 성장은 500년 전까지 계속됐는데, 정치적 혼란기에, 그 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하는 **집정관**들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그는 다른 통치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자진해서 물러났고,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권한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한 명의 통치자가 대륙의 주권을 차지했다. 통합을 이룬 국가는 강력한 군주 통치 아래서 거의 100년 이상 발전했고, 그 기간에 훌륭한 자유 헌장이 완성됐다.

connection with the Lucifer rebellion. It received a Material Son shortly after Adam came to Urantia, and this Son also defaulted, leaving the sphere isolated, since a Magisterial Son has never been bestowed upon its mortal races.

1. THE CONTINENTAL NATION

72.1.1 (808.4) Notwithstanding all these planetary handicaps a very superior civilization is evolving on an isolated continent about the size of Australia. This nation numbers about 140 million. Its people are a mixed race, predominantly blue and yellow, having a slightly greater proportion of violet than the so-called white race of Urantia. These different races are not yet fully blended, but they fraternize and socialize very acceptably. The average length of life on this continent is now ninety years, fifteen per cent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people on the planet.

72.1.2 (808.5) The industrial mechanism of this nation enjoys a certain great advantage derived from the unique topography of the continent. The high mountains, on which heavy rains fall eight months in the year, are situated at the very center of the country. This natural arrangement favors the utilization of water power and greatly facilitates the irrigation of the more arid western quarter of the continent.

72.1.3 (808.6) These people are self-sustaining, that is, they can live indefinitely without importing anything from the surrounding nations. Their natural resources are replete, and by scientific techniques they have learned how to compensate for their deficiencies in the essentials of life. They enjoy a brisk domestic commerce but have little foreign trade owing to the universal hostility of their less progressive neighbors.

72.1.4 (808.7) This continental nation, in general, followed the evolutionary trend of the planet: The development from the tribal stage to the appearance of strong rulers and kings occupied thousands of years. The unconditional monarchs were succeeded by many different orders of government — abortive republics, communal states, and dictators came and went in endless profusion. This growth continued until about five hundred years ago when, during a politically fermenting period, one of the nation's powerful dictator-triumvirs had a change of heart. He volunteered to abdicate upon condition that one of the other rulers, the baser of the remaining two, also vacate his dictatorship. Thus was the sovereignty of the continent placed in the hands of one ruler. The unified state progressed under strong monarchical rule for over one hundred years, during which there evolved a masterful charter of liberty.

그 후에 군주제로부터 대의제도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차 진행됐고, 왕은 단순한 사회적이거나 감상적인 명목상 우두머리로 남게 됐으며, 남자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공화국은 겨우 200년 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 기간에,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정부 기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해왔고, 산업과 정치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고 있다.

2. 정치 조직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나라의 수도{首都}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州}를 관할하는 강력한 연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와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再選}할 수 없다. 주 재판관들은 주지사로부터 종신으로 임명받고, 입법부의 동의를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대도시 정부가 구성되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00만 명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자치도시를 통치하는 책임은,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직접이며, 경제적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시민들이, 소수의 도시 행정 직무를 예리하게 조사한다.

연방 정부는 세 협조 분야로 구성됐는데: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 최고 행정관은 6년마다 지역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그는 재선이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각 주지사의 동의를 받은, 75개 이상의 주 입법부의 청원으로 재선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뿐이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전직 최고 행정관들로 구성된 최고 고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입법부는 세 의회로 구성된다:

1. 상원{上院}은, 산업, 전문직, 농업, 및 기타 노동자 집단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2. 하원{下院}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 정치, 및 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이 선출한다. 정상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은 두 부류의 대표자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냐 하원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된다.

72:1.5 (809.1) The subsequent transition from monarchy to a representative form of government was gradual, the kings remaining as mere social or sentimental figureheads, finally disappearing when the male line of descent ran out. The present republic has now been in existence just two hundred years, during which time there has been a continuous progression toward the governmental techniques about to be narrated, the last developments in industrial and political realm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past decade.

2. POLITICAL ORGANIZATION

72:2.1 (809.2) This continental nation now h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th a centrally located national capital. The central government consists of a strong federation of one hundred comparatively free states. These states elect their governors and legislators for ten years, and none are eligible for re-election. State judges are appointed for life by the governors and confirmed by their legislatures, which consist of one representative for each one hundred thousand citizens.

72:2.2 (809.3) There are five different types of metropolitan governmen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ity, but no city is permitted to have more than one million inhabitants. On the whole, these municipal governing schemes are very simple, direct, and economical. The few offices of city administration are keenly sought by the highest types of citizens.

72:2.3 (809.4) The federal government embraces three co-ordinate division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The federal chief executive is elected every six years by universal territorial suffrage. He is not eligible for re-election except upon the petition of at least seventy-five state legislatures concurred in by the respective state governors, and then but for one term. He is advised by a supercabinet composed of all living ex-chief executives.

72:2.4 (809.5) The legislative division embraces three houses:

72:2.5 (809.6) 1. The *upper house* is elected by industrial, professional, agricultural, and other groups of workers, balloting in accordance with economic function.

72:2.6 (809.7) 2. The *lower house* is elected by certain organizations of society embracing the social, political, and philosophic groups not included in industry or the professions. All citizens in good standing participate in the election of both classes of representatives, but they are differently grouped, depending on whether the election pertains to the upper or lower house.

72:2.7 (809.8)

3. 제3 의회는--곧 원로{元老} 정치가들은-- 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이 포함되고, 최고 행정관, 지역(연방 산하) 행정관들,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그리고 상하 양원{兩院}의 지도자급 관리들이 지명한 많은 저명한 인사가 참여한다. 이 집단은 100 명으로 제한되고, 그 구성원은 원로 정치가들 자체의 과반 결정으로 선출된다. 회원권은 평생 지속되며, 빈자리가 생길 때에는, 지명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범위는 순전히 자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을 조정하는 대단한 기관이고, 정부의 모든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의 경영 업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10개의 (연방 산하) 지역 관계당국이 수행하는데, 각각 10개 주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부서는 전적으로 행정과 경영만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대표자는 연방 최고 행정관이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在職} 기간은 그의 임기와 똑같다--6년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가 열 명의 이 지역별 대표자 지명에 대해 승인하고, 그들은 재 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대표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후임자의 동역자 및 자문가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대표자가 경영 관리들로 구성된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주요 법정 체계를--곧 법률 법원과 사회경제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 법률 법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수준으로 분류된다:

1. 부속법원{部屬法院}은 자치도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부속법원의 결정은 주{州} 고등법정에 항소{抗訴}할 수 있다.

2. 주 최고법원의 결정은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이지만, 연방 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는 예외다. 지역 대표자들은 어떤 사례{事例}든지 즉시 연방 최고법원의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연방 최고법원 --주 법원에서 상정한 항소 사건과 국가적 논쟁에 대해 판결하는 고등 재판소. 이 최고 법정은, 어떤 주 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열두 명의 남자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최고 행정관이 지명하고, 최고 내각의 과반수 동의와, 입법 의회 중에서 제3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의 모든 결정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사회경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작용

72.2.1 (810.3) 3. The *third house* — the elder statesmen — embraces the veterans of civic service and includes many distinguished persons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by the regional (subfederal) executives, by the chief of the supreme tribunal, and by the presiding officers of either of the other legislative houses. This group is limited to one hundred, and its members are elected by the majority action of the elder statesmen themselves. Membership is for life, and when vacancies occur, the person receiving the largest ballot among the list of nominees is thereby duly elected. The scope of this body is purely advisory, but it is a mighty regulator of public opinion and exerts a powerful influence upon all branches of the government.

72.2.8 (810.1) Very much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work is carried on by the ten regional (subfederal) authorities, each consisting of the association of ten states. These regional divisions are wholly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having neither legislative nor judicial functions. The ten regional executives are the personal appointees of the federal chief executive, and their term of office is concurrent with his — six years. The federal supreme tribunal approves the appointment of these ten regional executives, and while they may not be reappointed, the retiring executive automatically becomes the associate and adviser of his successor. Otherwise, these regional chiefs choose their own cabinet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72.2.9 (810.2) This nation is adjudicated by two major court systems — the law courts and the socioeconomic courts. The law courts function on the following three levels:

72.2.10 (810.3) 1. *Minor courts* of municipal and local jurisdiction, whose decisions may be appealed to the high state tribunals.

72.2.11 (810.4) 2. *State supreme courts*, whose decisions are final in all matters not involving the federal government or jeopardy of citizenship rights and liberties. The regional executives are empowered to bring any case at once to the bar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72.2.12 (810.5) 3. *Federal supreme court* — the high tribunal for the adjudication of national contentions and the appellate cases coming up from the state courts. This supreme tribunal consists of twelve men over forty and under seventy-five years of age who have served two or more years on some state tribunal, and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is high position by the chief executive with the majority approval of the supercabinet and the third house of the legislative assembly. All decisions of this supreme judicial body are by at least a two-thirds vote.

72.2.13 (810.6) The socioeconomic courts function in

한다:

1. **부모 법원**,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부 및 행정부와 관련돼 있음.

2. **교육 법원** --주 및 지역 학교 체계와 연결되고, 교육 경영 체계의 행정 및 입법 부서들과 관련된 사법기관.

3. **산업 법원** --모든 경제적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전권{全權}을 부여받은 사법 재판소.

연방 최고 법원은, 국가 정부의 셋째 입법부, 즉 원로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 외에는, 사회경제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는, 부모와 교육 그리고 산업 최고 법원의 모든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3. 가정생활

이 대륙에서, 한 집에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집단 주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유형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됐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클럽이나 호텔 또는 다른 집단 거주지에 살 수 있다. 집을 짓도록 허락된 가장 작은 대지{垆地}는 최소 5만 평방 피트의 땅을 갖춰야 한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땅과 재산은, 최소한의 택지{宅地}를 위한 비용의 열 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민족의 가정생활은 지난 세기 동안 크게 증진됐다. 부모로서 수고하는 사람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의 자녀 훈육을 위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도 통신으로 이 일을 마쳐야 하는데, 10일마다 한 번 -- 5일을 한 주{週}로 계산하기 때문에 2주마다 한 번--, 직접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해당기관에 나가야 한다.

각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는 다섯이며, 그들은 완전히 부모의 통제를 받게 돼있는데, 부모 중에서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법원이 지정하는 후원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어떤 가족이든지, 부모가 둘 다 없는 고아의 후견인 임무를 받는 것을 큰 명예로 간주한다. 경쟁하는 시험이 부모들에게 시행되고, 최고의 부모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판명된 사람들의 가정에 고아가 위탁된다.

이 민족은 가정을 그들 문명의 기본 제도로 간주한다. 한 아이의 교육과 인격 훈련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한

the following three divisions:

72.2.14 (810.7) 1. *Parental courts*, associated wi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divisions of the home and social system.

72.2.15 (810.8) 2. *Educational courts* — the juridical bodies connected with the state and regional school systems and associated with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mechanism.

72.2.16 (810.9) 3. *Industrial courts* — the jurisdictional tribunals vested with full authority for the settlement of all economic misunderstandings.

72.2.17 (810.10) The federal supreme court does not pass upon socioeconomic cases except upon the three-quarters vote of the third legislative branch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house of elder statesmen. Otherwise, all decisions of the parent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high courts are final.

3. THE HOME LIFE

72.3.1 (811.1) On this continent it is against the law for two families to live under the same roof. And since group dwellings have been outlawed, most of the tenement type of buildings have been demolished. But the unmarried still live in clubs, hotels, and other group dwellings. The smallest homesite permitted must provide fifty thousand square feet of land. All land and other property used for home purposes are free from taxation up to ten times the minimum homesite allotment.

72.3.2 (811.2) The home life of this people has greatly improved during the last century. Attendance of parents, both fathers and mothers, at the parental schools of child culture is compulsory. Even the agriculturists who reside in small country settlements carry on this work by correspondence, going to the near-by centers for oral instruction once in ten days — every two weeks, for they maintain a five-day week.

72.3.3 (811.3)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in each family is five, and they are under the full control of their parents or, in case of the demise of one or both, under that of the guardians designated by the parental courts. It is considered a great honor for any family to be awarded the guardianship of a full orphan. Competitive examinations are held among parents, and the orphan is awarded to the home of those displaying the best parental qualifications.

72.3.4 (811.4) These people regard the home as the basic institution of their civi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valuable part of a child's education and character training will be secured from his parents and at home, and fathers devote almost

다.

모든 성교육(性教育)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합법적 보호자가 시행한다. 도덕 교육은 학교 실습실에서 방과 후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부모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종교를 가정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순전히 종교적인 가르침은, 철학을 가르치는 신전(神殿)에서만 대중에게 제공되며, **유란시아**의 교회 같은 전속 종교 기관은 이 민족 가운데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동료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전형적 종교 상태가 아니다. 이 민족에게는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 문제이므로, 종교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공공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인**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종교와 철학은 기이하게 중첩돼 있다.

20년 전만 해도 (**유란시아**의 목사{牧師}에 해당하는) 영적인 선생님이 정부 차원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들은 각 가정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올바르게 훈육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영적 자문가이며 시험관인 이 사람들은, 현재 새로 창립된 **영적 진보 재단**의 지휘 아래 있고, 이 기관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유지된다. 아마 이 기관은 **낙원 집행관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진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린이는 열다섯 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법적으로 소속돼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처음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연속으로 5회에 걸쳐서 비슷하게 시행되는 5년 동안의 공개 훈련이, 비슷한 연령 집단들에게 부과되고, 부모에 대한 그들의 책무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 투표권은 스무 살에 수여되고,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스물다섯 살이 돼야 부여되며, 자녀들은 서른 살이 되면 가정을 떠나야 한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은 나라 전체가 동일하다.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갖는 연령인--스무 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은 오직, 결혼 의사를 밝힌 지 1년 후, 그리고 결혼 생활의 책임을 가르치는 부모 예비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신랑과 신부 양쪽이 제출한 후에야 허락된다.

이혼 규정은 어느 정도 엄격하지 못한 편이지만, 부모 법원이 발행한 이혼 허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을 수 없으며, 이 행정에서 1년은 **유란시아**의 1년보다 훨씬 길다. 법이 그들의 이혼을 쉽게 허용함에도, 현재 이혼

as much attention to child culture as do mothers.

72:3.5 (811.5) All sex instruction is administered in the home by parents or by legal guardians. Moral instruction is offered by teachers during the rest periods in the school shops, but not so with religious training, which is deemed to be the exclusive privilege of parents, religion being looked upon as an integral part of home life. Purely religious instruction is given publicly only in the temples of philosophy, no such exclusively religious institutions as the Urantia churches having developed among this people. In their philosophy, religion is the striving to know God and to manifest love for one's fellows through service for them, but this is not typical of the religious status of the other nations on this planet. Religion is so entirely a family matter among these people that there are no public places devoted exclusively to religious assembly. Politically, church and state, as Urantians are wont to say, are entirely separate, but there is a strange overlapping of religion and philosophy.

72:3.6 (811.6) Until twenty years ago the spiritual teachers (comparable to Urantia pastors), who visit each family periodically to examine the children to ascertain if they have been properly instructed by their parents, were under governmental supervision. These spiritual advisers and examiners are now under the direction of the newly created Foundation of Spiritual Progress, an institution support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Possibly this institution may not further evolve until after the arrival of a Paradise Magisterial Son.

72:3.7 (811.7) Children remain legally subject to their parents until they are fifteen, when the first initiation into civic responsibility is held. Thereafter, every five years for five successive periods similar public exercises are held for such age groups at which their obligations to parents are lessened, while new civ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o the state are assumed. Suffrage is conferred at twenty, the right to marry without parental consent is not bestowed until twenty-five, and children must leave home on reaching the age of thirty.

72:3.8 (812.1) Marriage and divorce laws are uniform throughout the nation. Marriage before twenty — the age of civil enfranchisement — is not permitted. Permission to marry is only granted after one year's notice of intention, and after both bride and groom present certificates showing that they have been duly instructed in the parental schools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rried life.

72:3.9 (812.2) Divorce regulations are somewhat lax, but decrees of separation, issued by the parental courts, may not be had until one year after application therefor has been recorded, and the year on this planet is considerably longer than on

울은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인종들 경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Urantia. Notwithstanding their easy divorce laws, the present rate of divorces is only one tenth that of the civilized races of Urantia.

4. 교육 체계

이 나라의 교육 체계는, 다섯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학생이 참여하는, 학부 이전{以前} 학교의 의무교육 및 남녀공학교육으로 이뤄진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거기에는 교실이 없고, 한 번에 한 과목만 배우며, 첫 3년이 지나면 모든 학생이 보조{補助} 교사가 되어, 하급생을 가르친다. 학교 실습장과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요구될 때에만 책이 사용된다. 그 대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구와 많은 기계장치가 이 실습소들에서 생산된다--발명과 기계화가 이뤄지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각 실습소 주변에는, 필요한 참고 서적을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도서관이 있다. 농업과 원예술에 관한 학습역시, 각 지역 학교 근처에 있는 광대한 농장에서 전체 학기 동안 진행된다.

정신박약아는 농업과 목축업만 훈련받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적{性的}으로 격리되는 특별 보호지역에서 생활하게 돼있는데, 정상 이하의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이런 제한조치는 75년 동안 시행돼 왔으며;부모 법원이 그 구속{拘束} 명령을 하달한다.

각 사람마다, 매 년 1개월의 휴가를 갖는다. 학부 이전{以前}의 학교들은 10개월로 돼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공부하고, 부모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로 방학을 지낸다. 이런 여행은 성인 교육 계획표의 한 부분이며, 일생동안 계속되는데,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노후대책 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다.

학습시간의 4분의 1은 운동에--곧 경쟁하는 운동경기에--소요되며, 그 지역의 시험에서 이긴 학생들은, 주{州} 시험과 광역{廣域} 시험을 거쳐서, 솜씨와 웅맹성을 겨루는 국가 시험에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사회 부문들에서 전국 명예를 얻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은 웅변과 음악 시험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 관한 시험에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 행정은, 세 개의 연관된 분야로 구성된 국가정부와 똑같은 형태이고, 가르치는 직원들은, 제3의 부서, 즉 자문하는 입법부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나라의 주요 교육목적은, 모든 학생을 자활{自活}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4. THE EDUCATIONAL SYSTEM

72:4.1 (812.3) The educational system of this nation is compulsory and coeducational in the precollege schools that the student attends from the ages of five to eighteen. These schools are vastly different from those of Urantia. There are no classrooms, only one study is pursued at a time, and after the first three years all pupils become assistant teachers, instructing those below them. Books are used only to secure information that will assist in solv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school shops and on the school farms. Much of the furniture used on the continent and the many mechanical contrivances — this is a great age of invention and mechanization — are produced in these shops. Adjacent to each shop is a working library where the student may consult the necessary reference books.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re also taught throughout the entire educational period on the extensive farms adjoining every local school.

72:4.2 (812.4) The feeble-minded are trained only in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and are committed for life to special custodial colonies where they are segregated by sex to prevent parenthood, which is denied all subnormals. These restrictive measures have been in operation for seventy-five years; the commitment decrees are handed down by the parental courts.

72:4.3 (812.5) Everyone takes one month's vacation each year. The precollege schools are conducted for nine months out of the year of ten, the vacation being spent with parents or friends in travel. This travel is a part of the adult-education program and is continued throughout a lifetime, the funds for meeting such expenses being accumulated by the same methods as those employed in old-age insurance.

72:4.4 (812.6) One quarter of the school time is devoted to play — competitive athletics — the pupils progressing in these contests from the local, through the state and regional, and on to the national trials of skill and prowess. Likewise, the oratorical and musical contests, as well as those in science and philosophy, occupy the attention of students from the lower social divisions on up to the contests for national honors.

72:4.5 (812.7) The school government is a replica of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its three correlated branches, the teaching staff functioning as the third or advisory legislative division. The chief object of education on this continent is to make every pupil a self-supporting citizen.

학부 교육 체계 이전{以前}의 교육 과정을 18세에 마친 자녀는 모두, 숙련된 기능공이 돼있다. 그 다음에는 성인 교육기관 또는 학부에서, 책을 통해서 연구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이, 계획된 기간 이전에 과정을 완료하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직접 구상하는 어떤 계획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교육 체계는 각 개인을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5. 산업 구조

이 민족 가운데서 산업 환경은, 그들의 이상{理想}보다 훨씬 뒤떨어졌으며; 자본과 노동이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독특한 이 대륙의 일꾼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 분야의 주주{株主}가 되고 있으며; 영리한 노동자마다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의 적대관계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한 의도가 신속하게 자라고 있다. (약 100년 전에) 노예제도의 붕괴로 인해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해마다 2퍼센트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런 조정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신적, 도덕적, 및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으며; 이 우수한 노예들 가운데 다수는 전쟁 포로 또는 그 포로의 자녀였다. 그들은 약 50년 전에 마지막 남은 열등한 노예들을 추방했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 의견 차이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조절하기 위한 새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방법보다 현저히 개선됐다. 개인 간 또는 산업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 이익금, 및 기타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산업담당 입법부의 통제를 받으며, 한편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산업 법원으로 이관된다.

산업 법원들은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는 산업 법원들이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법적 보정{補整}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 이자율.

2. 산업 운영에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給與}.

72:4.6 (813.1) Every child graduating from the precollege school system at eighteen is a skilled artisan. Then begins the study of books and the pursuit of special knowledge, either in the adult schools or in the colleges. When a brilliant student completes his work ahead of schedule, he is granted an award of time and means wherewith he may execute some pet project of his own devising. The entire educational system is designed to adequately train the individual.

5. INDUSTRIAL ORGANIZATION

72:5.1 (813.2) The industrial situation among this people is far from their ideals; capital and labor still have their troubles, but both are becoming adjusted to the plan of sincere co-operation. On this unique continent the workers are increasingly becoming shareholders in all industrial concerns; every intelligent laborer is slowly becoming a small capitalist.

72:5.2 (813.3) Social antagonisms are lessening, and good will is growing apace. No grave economic problems have arisen out of the abolition of slavery (over one hundred years ago) since this adjustment was effected gradually by the liberation of two per cent each year. Those slaves who satisfactorily passed mental, moral, and physical tests were granted citizenship; many of these superior slaves were war captives or children of such captives. Some fifty years ago they deported the last of their inferior slaves, and still more recently they are addressing themselves to the task of reducing the numbers of their degenerate and vicious classes.

72:5.3 (813.4) These people have recently developed new techniques for the adjustment of industrial misunderstandings and for the correction of economic abuses which are marked improvements over their older methods of settling such problems. Violence has been outlawed as a procedure in adjusting either personal or industrial differences. Wages, profits, and other economic problems are not rigidly regulated, but they are in general controlled by the industrial legislatures, while all disputes arising out of industry are passed upon by the industrial courts.

72:5.4 (813.5) The industrial courts are only thirty years old but are functioning very satisfactorily. The most recent development provides that hereafter the industrial courts shall recognize legal compensation as falling in three divisions:

72:5.5 (813.6) 1. Legal rates of interest on invested capital.

72:5.6 (813.7) 2. Reasonable salary for skill employed in industrial operations.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해서 이뤄질 것이며, 그렇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그들은 일시적 감소를 비례해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이런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분야, 즉: 자본, 기술, 및 노동에 할당될 것이다.

10년마다 지역 대표자들이 1일 유급 법정 노동시간을 조절해서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5일을 한 주로 해서 작동되는데, 4일 일하고 하루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여섯 시간씩 일하며, 10개월로 돼있는 1년에, 학생과 마찬가지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돼서,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여행에 적당한 기후는 1년에 약 8개월이며,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동기가 다른 더 높은 추진력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솜씨, 과학적인 성취, 및 지적 달성으로 옮겨졌다. 경쟁은 사회에 봉사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데서 가장 활기차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돼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기계 작업장에서 하루에 6시간 일한 후에, 정치인자격학교의 지역 분교 {分校}로 급히 달려가서 대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명예로운 것이 되고 있으며, 열여덟 살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은, 집과 농장, 어떤 공인된 산업체,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공공의 일터, 또는 의무적으로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에서 일한다.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을--곧 게으름뿐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계문명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때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다. 그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게다가 자아 실현 증진에 사용될 수 있는, 스스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6. 노후 대책 보험

이 나라는, 자존감을 파괴하는 유형의 자선 행위를, 노후 {老後}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부 보험으로 대체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 각자에게 교육

72:5.7 (813.8) 3. Fair and equitable wages for labor.

72:5.8 (813.9) These shall first be met in accordance with contract, or in the face of decreased earnings they shall share proportionally in transient reduction. And thereafter all earnings in excess of these fixed charges shall be regarded as dividends and shall be prorated to all three divisions: capital, skill, and labor.

72:5.9 (813.10) Every ten years the regional executives adjust and decree the lawful hours of daily gainful toil. Industry now operates on a five-day week, working four and playing one. These people labor six hours each working day and, like students, nine months in the year of ten. Vacation is usually spent in travel, and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having been so recently developed, the whole nation is travel bent. The climate favors travel about eight months in the year, and they are making the most of their opportunities.

72:5.10 (813.11) Two hundred years ago the profit motive was wholly dominant in industry, but today it is being rapidly displaced by other and higher driving forces. Competition is keen on this continent, but much of it has been transferred from industry to play, skill, scientific achievement, and intellectual attainment. It is most active in social service and governmental loyalty. Among this people public service is rapidly becoming the chief goal of ambition. The richest man on the continent works six hours a day in the office of his machine shop and then hastens over to the local branch of the school of statesmanship, where he seeks to qualify for public service.

72:5.11 (814.1) Labor is becoming more honorable on this continent, and all able-bodied citizens over eighteen work either at home and on farms, at some recognized industry, on the public works where the temporarily unemployed are absorbed, or else in the corps of compulsory laborers in the mines.

72:5.12 (814.2) These people are also beginning to foster a new form of social disgust — disgust for both idleness and unearned wealth. Slowly but certainly they are conquering their machines. Once they, too, struggled for political liberty and subsequently for economic freedom. Now are they entering upon the enjoyment of both while in addition they are beginning to appreciate their well-earned leisure, which can be devoted to increased self-realization.

6. OLD-AGE INSURANCE

72:6.1 (814.3) This nation is making a determined effort to replace the self-respect-destroying type of charity by dignified government-insurance guarantees of security in old age. This nation

을 제공하고, 어른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약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70세 될 때까지 일터에 남아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주{州}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면, 65세에 유급{有給} 직장에서 은퇴해야 한다. 이런 연령 제한은, 공무원 또는 철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원에서 조성된다.

1.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 중에서 매 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연방 정부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징수함.

2. 유산{遺産}--수많은 부자 시민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3. 주{州}가 관리하는 광산의 의무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의 생계비와 그들 자신의 은퇴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런 은퇴연금 자금으로 전환된다.

4.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收益金}. 그 대륙에 저장돼 있는 모든 천연자원은 연방 정부가 사회 신탁 기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인들을 위한 경비 등의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자원에서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주{州} 및 지역 보험 재단들이 여러 형태의 보호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 정부가 10개의 지역 관청을 통해서 경영한다.

이런 정부 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돼 오고 있다. 반역죄와 살인죄 다음으로, 법원이 내리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대중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세금 징수

연방 정부는 오직 노인 연금의 경영, 그리고 천재와 창조적 독창성을 육성하는 데만 간섭하며; 주{州} 정부가 시민 개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간섭하거나,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다. 도시는(또는 도시의 어떤 하위부서들은), 건강, 공중위생, 건물 규제, 미화{美

provides every child an education and every man a job; therefore can it successfully carry out such an insurance sc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firm and aged.

72:6.2 (814.4) Among this people all persons must retire from gainful pursuit at sixty-five unless they secure a permit from the state labor commissioner which will entitle them to remain at work until the age of seventy. This age limit does not apply to government servants or philosophers. The physically disabled or permanently crippled can be placed on the retired list at any age by court order countersigned by the pension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government.

72:6.3 (814.5) The funds for old-age pensions are derived from four sources:

72:6.4 (814.6) 1. One day's earnings each month are requisitio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and in this country everybody works.

72:6.5 (814.7) 2. Bequests — many wealthy citizens leave funds for this purpose.

72:6.6 (814.8) 3. The earnings of compulsory labor in the state mines. After the conscript workers support themselves and set aside their own retirement contributions, all excess profits on their labor are turned over to this pension fund.

72:6.7 (814.9) 4.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All natural wealth on the continent is held as a social trust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come therefrom is utilized for social purposes, such as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of geniuses, and expenses of especially promising individuals in the statesmanship schools. One half of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goes to the old-age pension fund.

72:6.8 (814.10) Although state and regional actuarial foundations supply many forms of protective insurance, old-age pensions are solely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e ten regional departments.

72:6.9 (814.11) These government funds have long been honestly administered. Next to treason and murder, the heaviest penalties meted out by the courts are attached to betrayal of public trust. Social and political disloyalty are now looked upon as being the most heinous of all crimes.

7. TAXATION

72:7.1 (815.1) The federal government is paternalistic only in the administration of old-age pensions and in the fostering of genius and creative originality; the state governments are slightly more concerned with the individual citizen, while the local governments are much more paternalistic or

化},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및 통신 등과 같은 문제에 관여한다.

모든 산업체의 최고 관심은 건강에 있으며; 특정한 단계의 육체적 행복이 산업과 공동체의 특권으로 간주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의 관심거리일 뿐이다. 의료에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도시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州} 정부 자금에서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수령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에서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면허를 줌으로써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도시 범위를 실제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高速} 운반 시설은 자치도시의 통제를 받는다.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 예방 및 보험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불에 타지 않도록 건축됐다 -- 75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

자치도시에는 보안 요원을 운영하지 않으며; 경찰 요원은 주{州} 정부가 유지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 스물다섯 살에서 오십 살 사이의 미혼 남자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는, 미혼 남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 주 경찰 요원의 평균 숫자는 50년 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 및 기타 조건이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100개의 주 정부 세금징수 요강은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 주마다 기본적으로 입법화{立法化}된 열 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연방 최고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 조항들 가운데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宅地}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1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빚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빚질 수 없으므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요시에는, 국방 협의회가 각 주에게 비용뿐 아니라 인력과 물자를 분담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이든지 청산돼야 한다.

연방 정부 유지를 위한 수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에서 모금된다:

socialistic. The city (or some subdivision thereof) concerns itself with such matters as health, sanitation, building regulations, beautification, water supply, lighting, heating, recreation, music, and communication.

72.7.2 (815.2) In all industry first attention is paid to health; certain phases of physical well-being are regarded as industrial and community prerogatives, but individual and family health problems are matters of personal concern only. In medicine, as in all other purely personal matters, it is increasingly the plan of government to refrain from interfering.

72.7.3 (815.3) Cities have no taxing power, neither can they go in debt. They receive per capita allowances from the state treasury and must supplement such revenue from the earnings of their socialistic enterprises and by licensing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72.7.4 (815.4) The rapid-transit facilities, which make it practical greatly to extend the city boundaries, are under municipal control. The city fire departments are supported by the fire-prevention and insurance foundations, and all buildings, in city or country, are fireproof — have been for over seventy-five years.

72.7.5 (815.5) There are no municipally appointed peace officers; the police forc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governments. This department is recruited almost entirely from the unmarried men between twenty-five and fifty. Most of the states assess a rather heavy bachelor tax, which is remitted to all men joining the state police. In the average state the police force is now only one tenth as large as it was fifty years ago.

72.7.6 (815.6) There is little or no uniformity among the taxation schemes of the one hundred comparatively free and sovereign states as economic and other conditions vary greatly in different sections of the continent. Every state has ten basic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cannot be modified except by consent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one of these articles prevents levying a tax of more than one per cent on the value of any property in any one year, homesites, whether in city or country, being exempted.

72.7.7 (815.7)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go in debt, and a three-fourths referendum is required before any state can borrow except for purposes of war. Since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incur debt, in the event of war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is empowered to assess the states for money, as well as for men and materials, as it may be required. But no debt may run for more than twenty-five years.

72.7.8 (815.8) Income to support the federal government is derived from the following five sources: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대륙의 삶의 표준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는, 산업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직무를 맡은 최고 책임자의 제안을 비준한 후에, 최고 산업 법원이 정하는데, 그 책임자는 이 두 입법부 기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산업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선출한다.

2.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열 개의 지역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을--곧 예술가, 작가, 및 과학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해서, 발명품과 독창적 작품이 나오도록 장려한다.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지, 그런 모든 발명과 창작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절반을 그 대가(代價)로 취한다.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기타 조건에 따라서, 1내지 50퍼센트의 누진(累進) 상속세를 부과한다.

4. **군용(軍用) 장비.** 정부는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과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수익금을 만든다.

5. **천연자원.**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연방 국가체제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부 요구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국고(國庫)로 전환된다.

국방 협의회가 부과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 지출금은 입법부의 상원 의회에서 발의(發意)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최고 행정관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의 비준(批准)을 받는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주지사가 지명하며, 24년간 근무하도록 주(州) 입법부가 선출하는데,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한다. 이 기관은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로,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리하여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휘자와--통제관이 된다.

8. 특별 학부

다섯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 교육 계획표 외에, 특별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1. **정치인자격학교.** 이 학교는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국가, 지역, 및 주(州)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관공서는 네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경영에 관계되며,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은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학교,

72:7.9 (815.9) 1. **Import duties.** All imports are subject to a tariff designed to protect the standard of living on this continent, which is far above that of any other nation on the planet. These tariffs are set by the highest industrial court after both houses of the industrial congress have ratifi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hief executive of economic affairs, who is the joint appointee of these two legislative bodies. The upper industrial house is elected by labor, the lower by capital.

72:7.10 (816.1) 2. **Royalties.** The federal government encourages invention and original creations in the ten regional laboratories, assisting all types of geniuses — artists, authors, and scientists — and protecting their patents. In return the government takes one half the profits realized from all such inventions and creations, whether pertaining to machines, books, artistry, plants, or animals.

72:7.11 (816.2) 3. **Inheritance tax.** The federal government levies a graduated inheritance tax ranging from one to fifty per cent, depending on the size of an estate as well as on other conditions.

72:7.12 (816.3) 4. **Military equipment.** The government earns a considerable sum from the leasing of military and naval equipment for commercial and recreational usages.

72:7.13 (816.4) 5. **Natural resources.**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when not fully required for the specific purposes designated in the charter of federal statehood, is turned into the national treasury.

72:7.14 (816.5) Federal appropriations, except war funds assess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are originated in the upper legislative house, concurred in by the lower house, approved by the chief executive, and finally validated by the federal budget commission of one hundred. The members of this commission are nominated by the state governors and elected by the state legislatures to serve for twenty-four years, one quarter being elected every six years. Every six years this body, by a three-fourths ballot, chooses one of its number as chief, and he thereby becomes director-controller of the federal treasury.

8. THE SPECIAL COLLEGES

72:8.1 (816.6) In addition to the basic compulsory education program extending from the ages of five to eighteen, special schools are maintained as follows:

72:8.2 (816.7) 1. **Statesmanship schools.** These schools are of three classes: national, regional, and state. The public offices of the nation are grouped in four divisions. The first division of public trust pertains principally to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all officeholders of this group

들 다 마쳐야 한다. 정치인을 위한 열 개의 지역 학교 가운데 하나를 졸업한 사람은, 둘째 부문의 정치적 직책, 선출되는 직책, 또는 임명받는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경영과 주 정부에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제3 부문은 주에 대한 책무가 포함되고, 그런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위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 넷째 부문의 공무원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런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그것들은, 보좌관, 비서관, 및 기술 협회에서 일하는 사소한 직책이며, 정부를 경영하는 자격을 갖추고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이 그 일을 수행한다.

부속법원과 주 법원의 재판관은, 주{州}의 정치인자격 학교의 학위를 지닌다. 사회, 교육, 및 산업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법정의 재판관은, 지역 학교 학위를 지닌다. 연방 최고 법원의 재판관은, 이 정치인자격학교들의 학위를 전부 가져야 한다.

2. 철학 학교. 이 학교는 철학을 연구하는 전당{殿堂}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 기능으로써 종교와 다소 관련돼 있다.

3. 과학 교육기관. 이 기술학교는 교육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산업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열다섯 개의 분야로 경영되고 있다.

4. 전문적인 훈련 학교. 이 특수 교육기관은, 열두 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박식한 전문 분야를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5. 육군 학교와 해군 학교. 국가 본부 근처와 스물다섯 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에는, 열여덟 살에서 서른 살 사이의 자원하는 시민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에 이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 보통 선거권 방식

모든 공직 후보자는, 정치인을 위한, 주{州}, 지역, 또는 연방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진취적 지도자들은 보통 선거권 방식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50년 전에 수정된 투표 기구를 위한 헌법 조항을 제정했는데,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췄다:

1. 스무 살 이상의 모든 남녀 각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모든 시민은 반드시 두 가지 투표 집단의 회원권을 획득해야 하는데:--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 등-- 자

must be graduates of both regional and national schools of statesmanship. Individuals may accept political, elective, or appointive office in the second division upon graduating from any one of the ten regional schools of statesmanship; their trusts concern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al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governments. Division three includes state responsibilities, and such officials are only required to have state degrees of statesmanship. The fourth and last division of officeholders are not required to hold statesmanship degrees, such offices being wholly appointive. They represent minor positions of assistantship, secretaryships, and technical trusts which are discharged by the various learned professions functioning in governmental administrative capacities.

72:8.3 (816.8) Judges of the minor and state courts hold degrees from the state schools of statesmanship. Judges of the jurisdictional tribunals of soci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matters hold degrees from the regional schools. Judges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must hold degrees from all these schools of statesmanship.

72:8.4 (817.1) 2. *Schools of philosophy.* These schools are affiliated with the temples of philosophy and are more or less associated with religion as a public function.

72:8.5 (817.2) 3. *Institutions of science.* These technical schools are co-ordinated with industry rather than with the educational system and are administered under fifteen divisions.

72:8.6 (817.3) 4.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These special institutions provide the technical training for the various learned professions, twelve in number.

72:8.7 (817.4) 5. *Military and naval schools.* Near the national headquarters and at the twenty-five coastal military centers are maintained those institutions devoted to the military training of volunteer citizens from eighteen to thirty years of age. Parental consent is required before twenty-five in order to gain entrance to these schools.

9. THE PLAN OF UNIVERSAL SUFFRAGE

72:9.1 (817.5) Although candidates for all public offices are restricted to graduates of the state, regional, or federal schools of statesmanship, the progressive leaders of this nation discovered a serious weakness in their plan of universal suffrage and about fifty years ago made constitutional provision for a modified scheme of voting which embraces the following features:

72:9.2 (817.6) 1. Every man and woman of twenty years and over has one vote. Upon attaining this age, all citizens must accept membership in two voting groups: They will join the first in accordance

신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첫째 집단에 들어가며; 정치적, 철학적, 및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는 참정권을 갖는 어떤 경제 집단에 소속되고, 이 조합(組合)들은, 비경제 연합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으로 권력이 분리된 국가 정부와 아주 흡사하게 조절된다. 이런 집단에 등록되면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2.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거나, 정부에 근무하면서 비범한 지혜를 나타낸 개인들은, 주지사 또는 지역 행정관들의 지명을 받고, 지역 최고 협회회의 명령에 따라서, 5년 이상의 기간마다 추가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런 초과 선거권은 아홉 개를 넘지 못한다. 어떤 복수 투표권자들지, 최대 투표권은 열 개다. 과학자, 발명가, 선생, 철학자, 및 영적 지도자 역시, 확대된 정치 권한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州)와 지역의 최고 협회회가 이런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며, 수혜자(受惠者)들은 자신의 개인 경력표에, 다른 학위들과 함께 그런 시민 표창을 첨부해 표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3. 광산(鑛山)에서 의무적으로 노동하도록 선고 받은 모든 개인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모든 공직자는, 그런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65세에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하게 될 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납부한 연평균 세금을 5년마다 반영한 다섯 등급의 투표권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투표권이 다섯 개까지 부여된다. 이런 혜택은 다른 모든 상급(賞給)과는 별개로 부여되지만, 어떤 사람도 열 개보다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이런 참정권 계획이 채택됐을 때, 경제 체계, 즉 기능적 체계를 찬성하는 대신, 지역 투표 방식은 폐기됐다. 모든 시민은 이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산업, 사회, 또는 전문 집단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장 뛰어난 회원들만 선출하는, 단결되고, 통합되고, 지성적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런 기능별 또는 집단별 투표 기획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6년마다 선출되는 연방 최고 행정관은 전국 투표로 결정하며, 어떤 시민도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최고 행정관 선거를 제외하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적, 전문적, 지적, 및 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시행된다. 이상적인 국가는 유기적이며, 자유롭고 지성적인 모든 시민 집단은, 그보다 큰 유기체인 정부 안에서 생동적이고 기능을 발휘하

with their economic function — industrial, professional, agricultural, or trade; they will enter the second group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hilosophic, and social inclinations. All workers thus belong to some economic franchise group, and these guilds, like the noneconomic associations, are regulated much as is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its threefold division of powers. Registration in these groups cannot be changed for twelve years.

72:9.3 (817.7) 2. Upon nomination by the state governors or by the regional executives and by the mandate of the regional supreme councils, individuals who have rendered great service to society, or who have demonstrated extraordinary wisdom in government service, may have additional votes conferred upon them not oftener than every five years and not to exceed nine such superfranchises. The maximum suffrage of any multiple voter is ten. Scientists, inventors, teachers, philosophers, and spiritual leaders are also thus recognized and honored with augmented political power. These advanced civic privileges are conferred by the state and regional supreme councils much as degrees are bestowed by the special colleges, and the recipients are proud to attach the symbols of such civic recognition, along with their other degrees, to their lists of personal achievements.

72:9.4 (817.8) 3. All individuals sentenced to compulsory labor in the mines and all governmental servants supported by tax funds are, for the periods of such services, disenfranchised. This does not apply to aged persons who may be retired on pensions at sixty-five.

72:9.5 (817.9) 4. There are five brackets of suffrage reflecting the average yearly taxes paid for each half-decade period. Heavy taxpayers are permitted extra votes up to five. This grant is independent of all other recognition, but in no case can any person cast over ten ballots.

72:9.6 (818.1) 5. At the time this franchise plan was adopted, the territorial method of voting was abandoned in favor of the economic or functional system. All citizens now vote as members of industrial, social, or professional group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Thus the electorate consists of solidified, unified, and intelligent groups who elect only their best members to positions of governmental trust and responsibility.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scheme of functional or group suffrage: The election of a federal chief executive every six years is by nation-wide ballot, and no citizen casts over one vote.

72:9.7 (818.2) Thus, except in the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suffrage is exercised by economic, profess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groupings of the citizenry. The ideal state is organic, and every free and intelligent group of citizens represents a

는 기관{器官}을 대표한다.

정치인자격학교는, 어떤 결함이든지 있는 자, 게으른 자, 무관심한 자, 또는 죄를 범하는 개인의 투표권 말소시킬 의도로,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이 열등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 투표권을 가질 때에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나라든지 진부한 사람이 지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투표는 의무이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마다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에 대한 조치

이 사람들이, 범죄, 정신 이상, 및 퇴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만족스럽지만, 대부분의 유란시아인에게는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통상적인 죄수와 결함 있는 자는, 남녀가 따로 농장 지역에 수용되고, 자활할 수 있게 돼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습 범죄자와, 치료 불가능한 정신 이상자는, 독{毒} 가스실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법원이 선고한다. 살인범 외에도, 정부의 신용을 배반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에게도 사형이 구형되며, 정당성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실시된다.

이 사람들은 법률의 부정적 시대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 살인 및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격리된 주거지에서 일평생 살도록 선고하는, 범죄 예방 대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죄수들이 비교적 정상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중에 입증하면, 가석방{假釋放}되거나 사면{赦免}될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 살인 비율은 다른 나라들의 비율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범죄와 정신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미 만족스런 결과를 낳고 있다. 정신 이상자를 위한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무리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숫자의 10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1. 군대의 전시대비책

전국 국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방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 역량과 체험에 따라서, 일곱 가지 직급의 “문명의 수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최고 부모 재판소, 최고 교육 재판소, 및 최고 산업 재판소가 그들을 지명하고, 연방 최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며, 합동 군사 직무 참모총장{參謀總長}이 직권으로 통솔한다. 그런 요원{要員}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근무한다.

vital and functioning organ within the larger governmental organism.

72:9.8 (818.3) The schools of statesmanship have power to start proceedings in the state courts looking toward the disenfranchisement of any defective, idle, indifferent, or criminal individual. These people recognize that, when fifty per cent of a nation is inferior or defective and possesses the ballot, such a nation is doomed. They believe the dominance of mediocrity spells the downfall of any nation. Voting is compulsory, heavy fines being assessed against all who fail to cast their ballots.

10. DEALING WITH CRIME

72:10.1 (818.4) The methods of this people in dealing with crime, insanity, and degeneracy, while in some ways pleasing, will, no doubt, in others prove shocking to most Urantians. Ordinary criminals and the defectives are placed, by sexes, in different agricultural colonies and are more than self-supporting. The more serious habitual criminals and the incurably insane are sentenced to death in the lethal gas chambers by the courts. Numerous crimes aside from murder, including betrayal of governmental trust, also carry the death penalty, and the visitation of justice is sure and swift.

72:10.2 (818.5) These people are passing out of the negative into the positive era of law. Recently they have gone so far as to attempt the prevention of crime by sentencing those who are believed to be potential murderers and major criminals to life service in the detention colonies. If such convicts subsequent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become more normal, they may be either paroled or pardoned. The homicide rate on this continent is only one per cent of that among the other nations.

72:10.3 (818.6) Efforts to prevent the breeding of criminals and defectives were begun over one hundred years ago and have already yielded gratifying results. There are no prisons or hospitals for the insane. For one reason, there are only about ten per cent as many of these groups as are found on Urantia.

11. MILITARY PREPAREDNESS

72:11.1 (818.7) Graduates of the federal military schools may be commissioned as “guardians of civilization” in seven ranks, in accordance with ability and experience, by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This council consists of twenty-five members, nominated by the highest parent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tribunals, confirmed by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presided over ex officio by the chief of staff of

그렇게 임명된 장교가 이수해야 할 과정은 4년 걸리고, 어떤 무역 또는 전문직과 반드시 관련돼 있다. 군사 훈련은 반드시 관련된 산업학교, 과학학교, 또는 전문적인 학교 수업과 함께 수행된다. 군사 훈련이 끝났을 때, 각 개인은 4년 과정 동안에, 마찬가지로 4년 걸리는 어느 특수학교에서 부과하는 교육의 절반을 마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부{前半部} 과정의 기술 또는 전문직 훈련을 확보하는 동안에, 많은 남자들에게 자활{自活} 능력을 갖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군인 계층을 창설하지 않아도 된다.

평화 시에 군복무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어느 지부에서 군무하더라도 4년 동안 복무하게 되고, 그 기간에 각 사람은 군사 전술학{戰術學}을 전공하는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통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음악 훈련은, 대륙의 주위에 흩어져 있는 스물다섯 개의 훈련소와 중앙 군사학교에서 이뤄지는 주요 오락 가운데 하나다.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기간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가,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대륙의 군사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자동적으로 활용된다.

이 사람들이 주변의 호전적 민족들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강력한 전쟁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군사 자원을 갖고 지난 100년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들은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호전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 문명을 힘차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명화 됐다. 대륙의 주{州}들이 연맹을 이룬 이래, 내란{內亂}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두 세기{世紀} 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맹렬한 방어 전투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은 세계 강대국들의 강력한 동맹체와의 싸움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호전적인 이웃의 공격에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인, 과학자, 및 철학자의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어용 장비가 무역, 상업, 및 오락을 위해서 사용된다. 전쟁이 선포되면 국가 전체가 동원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전체 기간에는 군인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군대 부서 대장들이 최고 행정관 내각의 일원이 된다.

co-ordinated military affairs. Such members serve until they are seventy years of age.

72:11.2 (819.1) The courses pursued by such commissioned officers are four years in length and are invariably correlated with the mastery of some trade or profession. Military training is never given without this associated industrial, scientific, or professional schooling. When military training is finished, the individual has, during his four years' course, received one half of the education imparted in any of the special schools where the courses are likewise four years in length. In this way the creation of a professional military class is avoided by providing this opportunity for a large number of men to support themselves while securing the first half of a technical or professional training.

72:11.3 (819.2) Military service during peacetime is purely voluntary, and the enlistments in all branches of the service are for four years, during which every man pursues some special line of study in addition to the mastery of military tactics. Training in music is one of the chief pursuits of the central military schools and of the twenty-five training camps distributed about the periphery of the continent. During periods of industrial slackness many thousands of unemployed are automatically utilized in upbuilding the military defenses of the continent on land and sea and in the air.

72:11.4 (819.3) Although these people maintain a powerful war establishment as a defense against invasion by the surrounding hostile peoples, it may be recorded to their credit that they have not in over one hundred years employed these military resources in an offensive war. They have become civilized to that point where they can vigorously defend civilization without yielding to the temptation to utilize their war powers in aggression. There have been no civil w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continental state, but during the last two centuries these people have been called upon to wage nine fierce defensive conflicts, three of which were against mighty confederations of world powers. Although this nation maintains adequate defense against attack by hostile neighbors, it pays far more attention to the training of statesmen, scientists, and philosophers.

72:11.5 (819.4) When at peace with the world, all mobile defense mechanisms are quite fully employed in trade, commerce, and recreation. When war is declared, the entire nation is mobilized. Throughout the period of hostilities military pay obtains in all industries, and the chiefs of all military departments become members of the chief executive's cabinet.

12. 다른 나라들

12. THE OTHER NATIONS

이런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의 나라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이 행성에는 열한 개의 대륙이 있는데)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정부는, **유란시아**에서 비교적 진보된 나라들보다 명백히 뒤떨어져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금, 뛰어난 이 정부는, 뒤쳐진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처음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도록 주장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출현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이 저질렀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대륙 국가가 단순히 이웃 민족들에게 가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온 후, 그들을 교육시키고, 문화 대사 자격으로 다시 그들의 미개한 형제들에게 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겠는가! 물론 진보된 이 나라에 **집정관 아들**이 곧 도래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에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웃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이런 설명은, **유란시아**에 있는 정부의 진화를 중대시키고 문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허락을 받아 이뤄졌다. 분명히 **유란시아인**의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훨씬 많은 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허용된 명령의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아무튼, **유란시아인**은, **사타니아**의 구성원인 그 자매 구체가, **낙원 아들**들의 집정관 사명뿐 아니라 중여 사명의 혜택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한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은, 이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로 서로 분리돼 있지도 않다.

진리의 영이 부여된 것은, 중여 세계의 인류에게 크게 진전된 유익(有益)을 실현시키는 영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는, 그 법률, 절차, 상징, 관례, 및 언어와 함께, 행성 정부를 더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훨씬 잘 준비돼 있다—곧 이 모든 것이, 법률에 의거한 범세계적 평화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참된 영적 투쟁의 시대가 태동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런 시대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入口)에 해당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72:12.1 (819.5) Although the society and government of this unique people are in many respects superior to those of the Urantia nations, it should be stated that on the other continents (there are eleven on this planet) the governments are decidedly inferior to the more advanced nations of Urantia.

72:12.2 (819.6) Just now this superior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ambassadorial relations with the inferior peoples, and for the first time a great religious leader has arisen who advocates the sending of missionaries to these surrounding nations. We fear they are about to make the mistake that so many others have made when they have endeavored to force a superior culture and religion upon other races. What a wonderful thing could be done on this world if this continental nation of advanced culture would only go out and bring to itself the best of the neighboring peoples and then, after educating them, send them back as emissaries of culture to their benighted brethren! Of course, if a Magisterial Son should soon come to this advanced nation, great things could quickly happen on this world.

72:12.3 (820.1) This recital of the affairs of a neighboring planet is made by special permission with the intent of advancing civilization and augmenting governmental evolution on Urantia. Much more could be narrated that would no doubt interest and intrigue Urantians, but this disclosure covers the limits of our permissive mandate.

72:12.4 (820.2) Urantians should, however, take note that their sister sphere in the Satania family has benefited by neither magisterial nor bestowal missions of the Paradise Sons. Neither are the various peoples of Urantia set off from each other by such disparity of culture as separates the continental nation from its planetary fellows.

72:12.5 (820.3)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provides the spiritu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great achievements in the interests of the human race of the bestowal world. Urantia is therefore far better prepared for the more immediate realization of a planetary government with its laws, mechanisms, symbols, conventions, and language — all of which could contribute so mightily to the establishment of world-wide peace under law and could lead to the sometime dawning of a real age of spiritual striving; and such an age is the planetary threshold to the utopian ages of light and life.

72:12.6 (820.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3편. 에덴 동산

⇨ 072

유란시아 책

07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73편
에덴 동산

섹션

소개

1. 노족속과 아마돈족속
2. 동산에 대한 계획
3. 동산 부지
4. 동산을 세움
5. 동산의 집
6. 생명나무
7. 에덴의 비운

PAPER 73
THE GARDEN OF EDE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2. Planning for the Garden
3. The Garden Site
4. Establishing the Garden
5. The Garden Home
6. The Tree of Life
7. The Fate of Eden

소개

캘리개스차가 몰락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혼란해짐으로 말미암은 문명의 퇴보와 영적 빈곤은, **유란시아** 민족들의 육체적 상태, 즉 생물학적 상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의 불만에 뒤따라서 그토록 신속하게 발생된 문화와 도덕의 후퇴와는 거의 상관없이, 유기적 진화는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던 가운데 행성 역사에 어떤 시기가 도래했는데, 약 4만 년 전에, 근무하던 **생명 운반자**들은,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제 **유란시아** 인종들의 발육상 진보가 정점{頂點}에 가까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멜기세덱** 관제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즉각 동의했으므로, 그들은 생물학적 개량자인 한 쌍의 **물질 아들**과 **딸**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유란시아**가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제출됐는데, 이는 **캘리개스차**가 몰락하고 **예루셈**에서 잠시 권력 공백이 생긴 후로 늘, **유란시아** 직무 가운데 많은 것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직접 다스려 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십진{十進} 세계, 즉 실험 세계

INTRODUCTION

73:0.1 (821.1) THE cultural decadence and spiritual poverty resulting from the Caligastia downfall and consequent social confusion had little effect on the physical or biologic status of the Urantia peoples. Organic evolution proceeded apace, quite regardless of the cultural and moral setback which so swiftly followed the disaffection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And there came a time in the planetary history, almost forty thousand years ago, when the Life Carriers on duty took note that, from a purely biologic standpoint,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the Urantia races was nearing its apex. The Melchizedek receivers, concurring in this opinion, readily agreed to join the Life Carriers in a petition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sking that Urantia be inspected with a view to authorizing the dispatch of biologic uplifters, a Material Son and Daughter.

73:0.2 (821.2) This request was address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because they had exercised direct jurisdiction over many of Urantia's affairs ever since Caligastia's downfall and the temporary vacation of authority on Jerusalem.

73:0.3 (821.3) Tabamantia, sovereign supervisor of

계통을 다스리는 최고 감독관 **타바만시아**가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왔고, 인종 진화를 조사한 후에, **유란시아**에 **물질 아들**들을 보내줄 것을 정식으로 추천했다. 이 조사가 있는 후 100년이 조금 못됐을 때, **아담**과 **이브**, 즉 지방체계의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했고, 반역으로 뒤쳐지고 영적 격리 명령 아래에 있는 행성의 뒤엎진 직무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다.

1. 낯족속과 아마돈족속

정상 행성에 **물질 아들**이 도래한 것은 대개, 발명과 물질적 진보 및 지적 각성에서 위대한 시대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예고하곤 한다. **아담** 이후 시대는 대부분의 세계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시대에 해당했지만, **유란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는 적합한 인종들이 행성에 살고 있었지만, 부족들은 야만스럽고 도덕적으로 침체된 수렁에서 시들고 있었다.

반역 후 1만 년이 지나자, **왕자**의 통치기간에 얻었던 모든 것이 실제로 소멸돼 버렸으며; 그 세계의 인종들은, 잘못 인도된 이 **아들**이 **유란시아**로 오지 않았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오직 **낯족속**과 **아마돈족속** 가운데서만, **달라마시아**의 전통과 **행성 왕자**의 문화가 지속됐다.

낯족속은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요원들의 후손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첫 지도자인 **낯**에서 유래했는데, **낯**은 한때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달라마시아**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아마돈족속**은 반과 **아마돈**에게 계속 충성했던 **안돈족속**의 후손이었다. “**아마돈족속**”이라는 이름은 인종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 문화적 내지 종교적 명칭이며; 인종 면에서 볼 때 **아마돈족속**은 본질적으로 **안돈족속**이었다. “**낯족속**”은 문화와 인종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낯족속** 자체가 **유란시아**의 여덟 번째 인종을 이뤘기 때문이다.

낯족속과 **아마돈족속** 사이에는 전통적 적대감이 있었다. 이런 반목은, 이 두 집단의 자손이 어떤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마다 끊임없이 표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후일에 **에덴**의 직무에서도, 평화롭게 같이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힘들었다.

달라마시아가 붕괴된 직후에, **낯** 추종자들은 세 개의 주요 집단으로 나뉘게 됐다. 중앙에 위치한 집단은, **페르시아** 만 상류 부근에 있는 그들의 원래 고향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동쪽에 위치한 집단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로 동쪽에 있는 **엘람** 고원 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쪽에 위치한 집단은, **지중해**와 인접 영토에 있는 **시리아**의 북동 연안에 자리 잡았다.

the series of decimal or experimental worlds, came to inspect the planet and, after his survey of racial progress, duly recommended that Urantia be granted Material Sons. In a little less than one hundred years from the time of this inspection, Adam and Ev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of the local system, arrived and began the difficult task of attempting to untangle the confused affairs of a planet retarded by rebellion and resting under the ban of spiritual isolation.

1.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73:1.1 (821.4) On a normal planet the arrival of the Material Son would ordinarily herald the approach of a great age of invention, material progress, and intellectual enlightenment. The post-Adamic era is the great scientific age of most worlds, but not so on Urantia. Though the planet was peopled by races physically fit, the tribes languished in the depths of savagery and moral stagnation.

73:1.2 (821.5) Ten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practically all the gains of the Prince's administration had been effaced; the races of the world were little better off than if this misguided Son had never come to Urantia. Only among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was there persistence of the traditions of Dalamatia and the culture of the Planetary Prince.

73:1.3 (821.6) The *Nodites* were the descendants of the rebe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ir name deriving from their first leader, Nod, onetime chairman of the Dalamatia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The *Amadonites* were the descendants of those Andonites who chose to remain loyal with Van and Amadon. “Amadonite” is more of a cultural and religious designation than a racial term; racially considered the Amadonites were essentially *Andonites*. “Nodite” is both a cultural and racial term, for the Nodites themselves constituted the eighth race of Urantia.

73:1.4 (822.1) There existed a traditional enmity between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This feud was constantly coming to the surface whenever the offspring of these two groups would try to engage in some common enterprise. Even later, in the affairs of Eden, it wa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m to work together in peace.

73:1.5 (822.2) Shortly after the destruction of Dalamatia the followers of Nod became divided into three major groups. The central group remain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ir original home near the headwaters of the Persian Gulf. The eastern group migrated to the highland regions of Elam just east of the Euphrates valley. The western group was situated on the northeastern Syrian shores of the Mediterranean and in adjacent territory.

이 **노족속**은 **상익** 인종과 자유롭게 짝져 왔고 유능한 자손을 남겼다. 그리고 반역한 **달라마시아인** 후손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서 **반**과 그의 충성스런 추종자들과 합세했다. **노족속**은 **반 호수**와 남쪽 **카스피 해** 지역 부근인 여기서 **아마돈족속**과 섞이고 교제했으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勇士}들” 가운데 속했다.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집단--곧 **노족속**과 **아마돈족속**--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문화가 발달된 인종이었다.

2. 동산에 대한 계획

타바만시아가 조사하기 전에 거의 100년 동안, **반**과 그 동역자들은, 고원지대(高原地帶)에 있던 그들의 세계 윤리 및 문화의 본부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즉 인종적 개량자이고, 진리의 선생이며, 배반한 **캘리개스차**를 대신할, 귀중한 계승자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파하고 있었다. 당시의 세계 거주민 대다수가 그런 예고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반** 및 **아마돈**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던 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약속된 **아들**을 실제로 영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예루셈의 물질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유란시아**에 오기 전부터 일찍이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아담**이라는 이 **아들**들이 항상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집에 산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 83년 전에, 그들의 도래를 선언하는 일과,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동산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그들에게 제안했다.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본부와, 멀리까지 산재해 있는 61개의 정착지로부터, **반**과 **아마돈**은 3천 명 이상의 자원하는 열성적 일꾼 단체를 모집했는데, 그들은 이 엄숙한 집회에서, 약속된--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준비하는 이 사명에 헌신했다.

반은 지원자들을 100개의 무리로 나누고, 각 무리마다 한 명의 지휘관을 뒀으며, 각 부대마다 한 명씩,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참모를 세워서 연락 책임자로 삼았고, **아마돈**을 동역자로 삼았다. 이 위원회들은 모두 진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물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힘차게 떠났다.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는, 해를 끼치는 힘을 많이 빼앗긴 상태에 있었지만, **동산**을 준비하는 작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이 기획을 진행해나가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의 1

73:1.6 (822.3) These Nodites had freely mated with the Sangik races and had left behind an able progeny. And some of the descendants of the rebellious Dalamatians subsequently joined Van and his loyal followers in the lands north of Mesopotamia. Here, in the vicinity of Lake Van and the southern Caspian Sea region, the Nodites mingled and mixed with the Amadonites, and they were numbered among the “mighty men of old.”

73:1.7 (822.4) Prior to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ese groups — Nodites and Amadonites — were the most advanced and cultured races on earth.

2. PLANNING FOR THE GARDEN

73:2.1 (822.5)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prior to Tabamantia's inspection, Van and his associates, from their highland headquarters of world ethics and culture, had been preaching the advent of a promised Son of God, a racial uplifter, a teacher of truth, and the worthy successor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Though the majority of the world's inhabitants of those days exhibited little or no interest in such a prediction, those who were in immediate contact with Van and Amadon took such teaching seriously and began to plan for the actual reception of the promised Son.

73:2.2 (822.6) Van told his nearest associates the story of the Material Sons on Jerusem; what he had known of them before ever he came to Urantia. He well knew that these Adamic Sons always lived in simple but charming garden homes and proposed, eighty-three years before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at they devote themselves to the proclamation of their advent and to the preparation of a garden home for their reception.

73:2.3 (822.7) From their highland headquarters and from sixty-one far-scattered settlements, Van and Amadon recruited a corps of over three thousand willing and enthusiastic workers who, in solemn assembly, dedicated themselves to this mission of preparing for the promised — at least expected — Son.

73:2.4 (822.8) Van divided his volunteers into one hundred companies with a captain over each and an associate who served on his personal staff as a liaison officer, keeping Amadon as his own associate. These commissions all began in earnest their preliminary work, and the committee on location for the Garden sallied forth in search of the ideal spot.

73:2.5 (822.9) Although Caligastia and Daligastia had been deprived of much of their power for evil, they did everything possible to frustrate and hamper the work of preparing the Garden. But their evil machinations were largely offset by the faithful activities of the almost ten thousand loyal midway

만 명에 달하는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의 신실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무력화{無力化}됐다.

creatures who so tirelessly labored to advance the enterprise.

3. 동산 부지

장소 물색을 맡은 위원회는 거의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세 군데의 가능한 장소를 찾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페르시아만의 한 섬이었고; 둘째는 나중에 두 번째 동산으로서 사용된, 강의 하구였으며; 셋째는 -- 거의 섬에 가까운 -- 좁고 긴 반도로서, 지중해 동쪽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간 곳이었다.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셋째 지역을 채택했다. 이 부지{敷地}가 선정되고 난 후에, 생명 나무를 포함하여, 세계의 문화 기지를 이 지중해 반도로 이전하는 데 2년 걸렸다. 반과 그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한 집단을 제외한 반도 전체 거주민이 평화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갔다.

이 지중해 반도는 쾌적한 기후와 온화한 기온을 유지했으며; 이런 안정된 날씨, 여러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지역이 사실상 내륙해{內陸海} 안에 있는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위에 있는 고원지대에는 비가 많이 내린 반면, 에덴 본토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 광활한 인공{人工} 관개시설의 수로망{水路網}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동산에 있는 식물을 싱싱하게 만들었다.

이 육지의 해안선은 상당히 융기돼 있었고, 대륙과 연결돼 있는 목 부분은, 가장 좁은 지점의 경우에 너비가 27마일밖에 되지 않았다. 동산을 적셔주는 큰 강이, 반도의 비교적 높은 지대에서 흘러내려서, 반도의 목 부분을 통하여 동쪽으로 대륙을 향해 흘러가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低地帶}를 가로질러 저편 바다에 이르렀다. 에덴 반도의 해안에 있는 구릉지대에서 발원{發源}하는 네 개의 지류{支流}가 그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들이 “에덴에서 흘러나가는” 강의 “네 개의 상류{上流}”인데, 나중에 두 번째 동산을 둘러싼 강들의 지류와 혼동됐다.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에는 진귀한 돌과 금속이 풍부했지만, 이것들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배적인 견해는, 원예술을 꽃피우게 하자는 것, 그리고 농업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었다.

동산으로 선정된 부지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며, 기후도 당시에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물의 낙원이라고 불릴 만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유란시아 문명에서 최상품들이 이 장소로 모이고 있었다. 그러나 동산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어둠, 무지, 그리고 미개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에덴은 유란시아에서 한 점의 빛나는

3. THE GARDEN SITE

73:3.1 (823.1) The committee on location was absent for almost three years. It reported favorably concerning three possible locations: The first was an island in the Persian Gulf; the second, the river location subsequently occupied as the second garden; the third, a long narrow peninsula — almost an island — projecting westward from the eastern shores of the Mediterranean Sea.

73:3.2 (823.2) The committee almost unanimously favored the third selection. This site was chosen, and two years were occupied in transferring the world's cultural headquarters, including the tree of life, to this Mediterranean peninsula. All but a single group of the peninsula dwellers peaceably vacated when Van and his company arrived.

73:3.3 (823.3) This Mediterranean peninsula had a salubrious climate and an equable temperature; this stabilized weather was due to the encircling mountains and to the fact that this area was virtually an island in an inland sea. While it rained copiously on the surrounding highlands, it seldom rained in Eden proper. But each night, from the extensive network of artificial irrigation channels, a “mist would go up” to refresh the vegetation of the Garden.

73:3.4 (823.4) The coast line of this land mass was considerably elevated, and the neck connecting with the mainland was only twenty-seven miles wide at the narrowest point. The great river that watered the Garden came down from the higher lands of the peninsula and flowed east through the peninsular neck to the mainland and thence across the lowlands of Mesopotamia to the sea beyond. It was fed by four tributaries which took origin in the coastal hills of the Edenic peninsula, and these are the “four heads” of the river which “went out of Eden,” and which later became confused with the branches of the rivers surrounding the second garden.

73:3.5 (823.5) The mountains surrounding the Garden abounded in precious stones and metals, though these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The dominant idea was to be the glorification of horticulture and the exaltation of agriculture.

73:3.6 (823.6) The site chosen for the Garden was probably the most beautiful spot of its kind in all the world, and the climate was then ideal. Nowhere else was there a location which could have lent itself so perfectly to becoming such a paradise of botanic expression. In this rendezvous the cream of the civilization of Urantia was forgoing. Without and beyond, the world lay in darkness,

장소였으며;있는 그대로 꿈같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곧 한 편의 절묘한 시(詩)를 생각나게 하는 완벽한 영광의 절경을 이루게 됐다.

4. 동산을 세움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 아들**이 진화 세계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식물로 장관을 이루는 성좌 수도{首都} **에덴시아**의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반**은 이 관습을 잘 알았고, 그에 따라 반도 전체가 **동산**에 소속되도록 준비했다. 목초와 동물 사육은, 대륙과 인접된 지역에서 이뤄지게 입안됐다. 동물 생명체 중에서는 단지 새와 다양한 길들여진 종류들만 그 공원에 거하게 돼있었다. **에덴**이 동산 중에서도 최상의 동산이 되어 한다는 것이 **반**의 지침이었다. 어떤 동물도 그 관할 지역 안에서는 도살하지 못하게 했다. 건설하는 기간 내내, **동산** 일꾼들이 먹은 모든 고기는 대륙에서 사육된 동물 떼에서 조달됐다.

첫째 과제는, 반도의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벽돌 담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단 완성되자, 실제적인 조경 작업과 보급자리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동물을 키우는 동산은, 근간이 되는 담 바로 바깥쪽에 비교적 작은 담을 건설함으로써 조성됐으며;그 사이 공간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추가적 방어수단으로 제공된 온갖 종류의 맹수로 채워졌다. 이 동물원은 크게 열두 개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무리들 사이에는 담으로 막은 도로가 **동산**의 열두 대문, 강, 그리고 중앙지역을 차지하는, 강 주변 목초지로 이어졌다.

동산을 준비하는 일에는 오직 자원하는 일꾼들만 고용됐으며;대가를 지불하는 고용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했고, 도움 받기 위해서 가축을 길들였으며;식량 조달은 가까운 곳에 있는 밭을 자들로부터 공급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업은, 이런 어수선한 시절에, 세상의 혼란스런 상태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무사히 완성시켜나갔다.

그러나 **반**은, 기대되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빨리 오게 될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도래가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작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를 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크게 낙심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반**의 태도는 그의 믿음에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됐으며, 많은 이탈자가 뒤따랐지만,**반**은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탈자의 자리를 젊은 자원자{自願者}들로 대신 메워나갔다.

ignorance, and savagery. Eden was the one bright spot on Urantia; it was naturally a dream of loveliness, and it soon became a poem of exquisite and perfected landscape glory.

4. ESTABLISHING THE GARDEN

73:4.1 (823.7) When Material Sons, the biologic uplifters, begin their sojourn on an evolutionary world, their place of abode is often called the Garden of Eden becaus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loral beauty and the botanic grandeur of Edentia, the constellation capital. Van well knew of these customs and accordingly provided that the entire peninsula be given over to the Garden. Pasturage and animal husbandry were projected for the adjoining mainland. Of animal life, only the birds and the various domesticated species were to be found in the park. Van's instructions were that Eden was to be a garden, and only a garden. No animals were ever slaughtered within its precincts. All flesh eaten by the Garden workers throughout all the years of construction was brought in from the herds maintained under guard on the mainland.

73:4.2 (824.1) The first task was the building of the brick wall across the neck of the peninsula. This once completed, the real work of landscape beautification and home building could proceed unhindered.

73:4.3 (824.2) A zoological garden was created by building a smaller wall just outside the main wall; the intervening space, occupied by all manner of wild beasts, served as an additional defense against hostile attacks. This menagerie was organized in twelve grand divisions, and walled paths led between these groups to the twelve gates of the Garden, the river and its adjacent pastures occupying the central area.

73:4.4 (824.3) In the preparation of the Garden only volunteer laborers were employed; no hirelings were ever used. They cultivated the Garden and tended their herds for support; contributions of food were also received from near-by believers. And this great enterprise was carried through to completion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attendant upon the confused status of the world during these troublous times.

73:4.5 (824.4) But it was a cause for great disappointment when Van, not knowing how soon the expected Son and Daughter might come, suggest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also be trained in the work of carrying on the enterprise in case their arrival should be delayed. This seemed like an admission of lack of faith on Van's part and made considerable trouble, caused many desertions; but Van went forward with his plan of preparedness, meantime filling the places of the

deserters with younger volunteers.

5. 동산의 집

에덴 반도 중심에는, **동산**의 신성시되는 성역{聖域}인, 절묘하게 돌로 지은 **만유의 아버지**의 성전{聖殿}이 있었다. 북쪽에는 경영 본부가 건립됐고; 남쪽에는 일꾼들과 그 가족을 위한 집이 세워졌으며; 서쪽에는 기대하는 **아들**의 교육 체계에 따른 계획된 학교들을 세울 땅으로 분할해서 제공됐고, 한편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의 직계 후손을 위해서 계획된 주거지가 건설됐다. **에덴**을 위한 건축 계획에는, 100만 명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집과 땅이 할당됐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 **동산**은 4분의 1밖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수천 마일의 관개{灌溉} 수로{水路}와 12,000마일에 달하는 포장된 통로 및 도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는 5천 채가 넘는 작은 벽돌집이 있었으며, 나무와 식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원 안에 있는 각 동네마다, 집의 수는 일곱 채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동산**의 구조물은 단순한 형태였지만, 가장 예술적이었다. 통로와 도로가 잘 건설됐고 그 풍치는 절묘했다.

동산의 정화시설은, 전에 **유란시아**에서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됐다. **에덴**의 음료수는,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고안한 위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유지됐다. 이 초기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이런 규정을 소홀히 한 때문이었지만, **반**은 **동산**의 물 공급원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역자들에게 점차 인식시켰다.

나중에 하수처리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는, **에덴**의 주민이 모든 쓰레기와 부패물을 철저하게 땅에 묻는 풍습을 지켰다. **아마돈**의 조사원{調查員}들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살피기 위해서, 매일 자기 구역을 순찰했다. **유란시아인**은 후대{後代}에 기원후 19세기와 20세기까지, 다시는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아담**의 통치체계가 붕괴되기 전에는, 덮개를 씌운 하수도 체계가 울타리 아래로 흘러서, **동산** 바깥쪽, 즉 낮은 담에서 거의 1마일 가량 떨어진 **에덴**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 세계 각 지역의 식물 대부분이 **에덴**에서 자라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과일, 곡류, 및 견과류가 이미 크게 개량돼 있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채소류와 곡류 대부분이 여기서 처음 재배됐지만,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식용 식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5. THE GARDEN HOME

73:5.1 (824.5) At the center of the Edenic peninsula was the exquisite stone templ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acred shrine of the Garden. To the north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to the south were built the homes for the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the west was provided the allotment of ground for the proposed schools of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expected Son, while in the "east of Eden" were built the domiciles intended for the promised Son and his immediate offspring. The architectural plans for Eden provided homes and abundant land for one million human beings.

73:5.2 (824.6)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though the Garden was only one-fourth finished, it had thousands of miles of irrigation ditches and more than twelve thousand miles of paved paths and roads. There were a trifle over five thousand brick buildings in the various sectors, and the trees and plants were almost beyond number. Seven was the largest number of houses composing any one cluster in the park. And though the structures of the Garden were simple, they were most artistic. The roads and paths were well built, and the landscaping was exquisite.

73:5.3 (824.7) The sanitary arrangements of the Garden were far in advance of anything that had been attempted theretofore on Urantia. The drinking water of Eden was kept wholesome by the strict observance of the sanitary regulations designed to conserve its purity. During these early times much trouble came about from neglect of these rules, but Van gradually impressed upon his associates the importance of allowing nothing to fall into the water supply of the Garden.

73:5.4 (825.1) Before the later establishment of a sewage-disposal system the Edenites practiced the scrupulous burial of all waste or decomposing material. Amadon's inspectors made their rounds each day in search for possible causes of sickness. Urantians did not again awaken to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human diseases until the later times of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efore the disruption of the Adamic regime a covered brick-conduit disposal system had been constructed which ran beneath the walls and emptied into the river of Eden almost a mile beyond the outer or lesser wall of the Garden.

73:5.5 (825.2) By the time of Adam's arrival most of the plants of that section of the world were growing in Eden. Already had many of the fruits, cereals, and nuts been greatly improved. Many modern vegetables and cereals were first cultivated here, but scores of varieties of food plants were

동산의 식물 중에서 5퍼센트 정도는 고도의 기술로 재배됐고, 15퍼센트는 부분적으로 재배됐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자연 상태에서 **아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담**의 생각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의 배우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완벽한 경영과 정상적 통제 아래서 이 세상에 영예가 될 만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거주지를 꾸미는 데서만큼은 상당한 수정을 했지만, **에덴**의 전체 계획에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까지 마지막 장식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음에도, 그곳은 이미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식물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며; 그가 **에덴**에 머물던 초기 시절 동안, **동산** 전체는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조화(調和)가 이뤄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풍부한 원예와 농업 전시장은 **유란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6. 생명 나무

반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나무를 **동산**의 성전 중앙에 심었고, 그 나무의 잎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실은 그를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했다. **아담**과 **이브**가 일단 **유란시아**에 물질 형태로 도래한 후에는, 그들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해 **에덴시아**의 이 선물에 의존하리라는 것을, **반**은 잘 알았다.

물질 아들들은, 체계 수도(首都)에 있을 때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나무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행성에서 재인격화 됐을 때에만, 육체의 불멸을 위해 이 보조물에 의존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잡다한 인간 체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회화적(繪畵的)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실제였고, 오랜 기간 **유란시아**에 남아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캘리게스차**를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 그리고 100명의 **예루셈** 시민을 그의 경영 참모진으로 임명하도록 승인했을 때, **에덴시아**에 있는 한 묘목(苗木)을 **멜기세덱**들 편에 행성으로 보냈으며, 이 묘목이 **유란시아**에서 자라나 생명나무가 됐다. 지성이 없는 이 형태의 생명체는 성과 본부 구체의 토산품인데, **하보나** 구체들뿐 아니라 지방우주나 연방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 수도에는 없다.

subsequently lost to the world.

73:5.6 (825.3) About five per cent of the Garden was under high artificial cultivation, fifteen per cent partially cultivated, the remainder being left in a more or less natural state pending the arrival of Adam, it being thought best to finish the park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73:5.7 (825.4) And so was the Garden of Eden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promised Adam and his consort. And this Garden would have done honor to a world under perfected administration and normal control. Adam and Eve were well pleased with the general plan of Eden, though they made many changes in the furnishings of their own personal dwelling.

73:5.8 (825.5) Although the work of embellishment was hardly finished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the place was already a gem of botanic beauty; and during the early days of his sojourn in Eden the whole Garden took on new form and assumed new proportions of beauty and grandeur. Never before this time nor after has Urantia harbored such a beautiful and replete exhibition of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6. THE TREE OF LIFE

73:6.1 (825.6) In the center of the Garden temple Van planted the long-guarded tree of life, whose leaves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and whose fruit had so long sustained him on earth. Van well knew that Adam and Eve would also be dependent on this gift of Edentia for their life maintenance after they once appeared on Urantia in material form.

73:6.2 (825.7) The Material Sons on the system capitals do not require the tree of life for sustenance. Only in the planetary repersonalization are they dependent on this adjunct to physical immortality.

73:6.3 (825.8)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may be a figure of speech, a symbolic designation covering a multitude of human experiences, but the “tree of life” was not a myth; it was real and for a long time was present on Urantia. When the Most Highs of Edentia approved the commission of Caligastia as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ose of the one hundred Jerusem citizens as his administrative staff, they sent to the planet, by the Melchizedeks, a shrub of Edentia, and this plant grew to be the tree of life on Urantia. This form of nonintelligent life is native to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spheres, being also foun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as well as on the Havona spheres, but not on the system capitals.

이 초월 식물은, 동물 실존을 노화{老化}_시키는 요소를 해독하는 어떤 공간_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초화학적 축전지{蓄電池} 같아서, 그것을 먹으면 신비하게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우주의 힘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이런 영양물 형태는, **유란시아**에 있는 일반 진화 존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특별히 100명의 물질화된 **캘리가스타** 참모진, 그리고 **왕자**의 참모진에게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기부했던 100명의 변경된 **안돈족속**에게는 유용하게 쓰였는데, 그들은 그 대가{代價}로 이 생명 보충물을 지닐 수 있게 됐고, 이것 없이는 필사적{必死的}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무한히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왕자의 통치 기간에, 그 나무는 **아버지**의 성전 중앙에 있는 원형{圓形} 뜰의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역이 일어나자, **반**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임시 야영지 중앙 한가운데서 다시 자라게 했다. 이 **에덴시아** 나무는, 나중에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옮겨졌는데, **반**과 **아마돈**은 거기서 15만년 이상이나 그 나무의 혜택을 입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한 **동산**을 준비했을 때, **반**과 동역자들이 그 **에덴시아** 나무를 **에덴 동산**에 옮겨 심었으며,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는 또 다른 성전 중앙의 원형 뜰에서 다시 한 번 자라게 됐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이중 형태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열매를 먹었다.

물질 아들의 계획이 잘못된 길로 가버렸을 때, **아담**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 나무 등치를 **동산**에서 옮겨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덴**으로 침범해 온 **노드족속**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신{神}들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방치돼 있음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과실을 마음껏 따먹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으며; 모두 그 영역의 물질 필사자였으며; 그 나무의 과실이 효력을 발휘할 만한 형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약효를 섭취할 능력이 없음에 격분하게 됐고, 여러 차례 내란{內亂}이 일어나는 중에, 성전과 나무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으며; 나중에 **동산**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돌담만 남아있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의 두 번째 소멸이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유란시아**의 모든 육체적 존재가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런 과정을 겪어야 했다. **아담**, **이브**,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이 흐르자 모두 소멸해 갔으며, 그리하여 육체가 죽은 후에는, 맨션 세계 부활이 이뤄지는 지방우주의 상승{上昇} 기획 아래 놓이게 됐다.

73:6.4 (826.1) This superplant stored up certain space-energies which were antidotal to the age-producing elements of animal existenc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was like a superchemical storage battery, mysteriously releasing the life-extension force of the universe when eaten. This form of sustenance was wholly useless to the ordinary evolutionary beings on Urantia, but specifically it was serviceable to the one hundred materialized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and to the one hundred modified Andonites who had contributed of their life plasm to the Prince's staff, and who, in return, were made possessors of that complement of life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utiliz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for an indefinite extension of their otherwise mortal existence.

73:6.5 (826.2) During the days of the Prince's rule the tree was growing from the earth in the central and circular courtyard of the Father's temple. Upon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it was regrown from the central core by Van and his associates in their temporary camp. This Edentia shrub was subsequently taken to their highland retreat, where it served both Van and Amadon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73:6.6 (826.3) When Van and his associates made ready the Garden for Adam and Eve, they transplanted the Edentia tree to the Garden of Eden, where, once again, it grew in a central, circular courtyard of another temple to the Father. And Adam and Eve periodically partook of its fruit for the maintenance of their dual form of physical life.

73:6.7 (826.4) When the plans of the Material Son went astray, Adam and his family were not permitted to carry the core of the tree away from the Garden. When the Nodites invaded Eden, they were told that they would become as “gods if they partook of the fruit of the tree.” Much to their surprise they found it unguarded. They ate freely of the fruit for years, but it did nothing for them; they were all material mortals of the realm; they lacked that endowment which acted as a complement to the fruit of the tree. They became enraged at their inability to benefit from the tree of life, and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ir internal wars, the temple and the tree were both destroyed by fire; only the stone wall stood until the Garden was subsequently submerged. This was the second temple of the Father to perish.

73:6.8 (826.5) And now must all flesh on Urantia take the natural course of life and death. Adam, Eve,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together with their associates, all perished in the course of time, thus becoming subject to the ascension scheme of the local universe wherein mansion world resurrection follows material death.

7. 에덴의 비운

아담이 첫 동산을 떠난 후에, **노족속**, **컷족속**, 및 **선족속**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 동산은 나중에, **아담족속**과 협동하기를 거부한 북쪽에 있는 **노족속**의 거주지가 됐다. 반도{半島}는 **아담**이 동산을 떠난 뒤 거의 4천 년 동안, 열등한 계층에 속하는 이 **노족속**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화산의 격렬한 활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시칠리아** 연결육지의 침수{沈水}와 관련해서, **지중해** 동쪽 지반{地盤}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 **에덴** 반도 전체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광대한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서, **지중해** 동쪽 해안선이 많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이것은 **유란시아**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연 창작품의 종말이기도 했다. 이 침몰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으며, 반도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

우리는 **동산**이 사라진 것이 신성한 계획을 잘 못 수행한 어떤 결과라거나,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에덴**의 침몰을 자연 발생적인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 사람을 갱생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한, 보라색 인종의 비축 인구가 다 축적될 시기와 때를 같이 해서, **동산**의 침몰이 일어나도록 맞춰진 것 같았다.

멜기세덱들은 **아담**에게, 그의 직계 가족이 50만 명 될 때까지는, 인종 개량을 위한 혼혈 계획표를 개시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동산**이 **아담족속**만의 영원한 거처가 돼야 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자{使者}가 될 예정이었으며, 이 세상의 궁핍한 인종들에게 사심 없이 증여되기 위해서 동원될 예정이었다.

멜기세덱들이 **아담**에게 준 지침 중에는, **아담**이, 인종별, 대륙별, 및 분야별로 본부를 세워서 그의 직계{直系} 아들과 딸들에게 맡기고, 한편 그와 **이브**는 세계 전역에, 생물학적 향상, 지적 발전, 그리고 도덕성의 부흥을 꾀하는 일에 자문가 및 조정자가 돼서, 이 여러 나라의 수도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눠 쓰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동산의 소리”** 스랍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7. THE FATE OF EDEN

73.7.1 (826.6) After the first garden was vacated by Adam, it was occupied variously by the Nodites, Cutites, and the Suntites. It later became the dwelling place of the northern Nodites who opposed co-operation with the Adamites. The peninsula had been overrun by these lower-grade Nodites for almost four thousand years after Adam left the Garden when, in connection with the violent activity of the surrounding volcanoes and the submergence of the Sicilian land bridge to Africa, the eastern floor of the Mediterranean Sea sank, carrying down beneath the waters the whole of the Edenic peninsula. Concomitant with this vast submergence the coast line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was greatly elevated. And this was the end of the most beautiful natural creation that Urantia has ever harbored. The sinking was not sudden, several hundred years being required completely to submerge the entire peninsula.

73.7.2 (827.1) We cannot regard this disappearance of the Garden as being in any way a result of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s or as a result of the mistakes of Adam and Eve. We do not regard the submergence of Eden as anything but a natural occurrence, but it does seem to us that the sinking of the Garden was timed to occur at just about the date of the accumulation of the reserves of the violet race for undertaking the work of rehabilitating the world peoples.

73.7.3 (827.2) The Melchizedeks counseled Adam not to initiate the program of racial uplift and blending until his own family had numbered one-half million. It was never intended that the Garden should be the permanent home of the Adamites. They were to become emissaries of a new life to all the world; they were to mobilize for unselfish bestowal upon the needy races of earth.

73.7.4 (827.3) The instructions given Adam by the Melchizedeks implied that he was to establish racial, continental, and divisional headquarters to be in charge of his immediate sons and daughters, while he and Eve were to divide their time between these various world capitals as advisers and co-ordinators of the world-wide ministry of biologic uplift, intellectual advancement, and moral rehabilitation.

73.7.5 (827.4)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74편. 아담과 이브

⇨ 073

유란시아 책

07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4편
아담과 이브

섹션

소개

1. 예루셈에서 아담과 이브
2. 아담과 이브의 도착
3.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4. 첫 격변
5. 아담의 경영
6.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7. 동산의 생활
8. 창조설화

PAPER 74
ADAM AND EVE

SECTIONS

Introduction

1. Adam and Eve on Jerusem
2. Arrival of Adam and Eve
3. Adam and Eve Learn about the Planet
4. The First Upheaval
5. Adam's Administration
6. Home Life of Adam and Eve
7. Life in the Garden
8. The Legend of Creation

소개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을 기준으로,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동산**에 꽃이 피는 최고 절정기 중간이었다. 정오에, 아무 예보 없이, 두 대의 스랍 운송선(運送船)이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개량자의 수송을 맡은 **예루셈** 대원들을 함께 태우고, 자전하는 행성 표면 위로, **만유의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 근방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를 재물질화(再物質化)하는 모든 작업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소(聖所) 내부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도착한지 10일 만에, 그들은 그 세계의 새 통치자로 소개될 수 있는, 이중(二重) 인간 형태로 다시_만들어졌다. 동시에 그들의 의식도 돌아왔다. **물질 아들**과 **딸**은 언제나 함께 봉사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베푸는 봉사의 근본이다. 그들은 한 쌍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홀로 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INTRODUCTION

74:0.1 (828.1) ADAM AND EVE arrived on Urantia, from the year A.D. 1934, 37,848 years ago. It was in midseason when the Garden was in the height of bloom that they arrived. At high noon and unannounced, the two seraphic transports, accompanied by the Jerusem personnel intrus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the biologic uplifters to Urantia, settled slowly to the surface of the revolving planet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of the Universal Father. All the work of rematerializing the bodies of Adam and Eve was carried on within the precincts of this newly created shrine. And from the time of their arrival ten days passed before they were re-created in dual human form for presentation as the world's new rulers. They regained consciousness simultaneously.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lways serve together. It is the essence of their service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never to be separated. They are designed to work in pairs; seldom do they function alone.

1. 예루셈에서 아담과 이브

1. ADAM AND EVE ON JERUSEM

유란시아에 온 **행성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선임(先任) **물질 아들** 단체의 대원이었으며, 그들의 공동번호는 14,311_번이었다. 그들은 셋째 육체 계통에 속했으며, 신장은 8피트보다 약간 컸다.

아담이 **유란시아**로 가도록 선정됐을 때, 그는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의 신체 시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1만 5천 년이 넘도록, 그들은 생체(生體) 형태 변경에 적용될 실험용 에너지 부서의 지도자였다. 이보다 오래 전에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민권 학교 교사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한 그들의 행동을 앞으로 서술하는 동안 참고가 되도록,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으로서 모험하는 사명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자, 선임 단체의 **물질 아들**과 **딸** 전체가 지원했다. **멜기세덱** 시험관은, **라나휘지**와 **에덴시아 지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후일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개량자 역할을 할, **아담**과 **이브**를 마침내 선발했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 반역 중에도 **미가엘**에게 충성스런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 그럼에도 한 쌍의 그들은, 심사와 지침을 받기 위해서 **체계 주권자**와 그의 내각 전체 앞으로 호출됐다. **유란시아** 직무의 세부사항이 완전하게 제시됐고, 그들은 투쟁으로 분열된 그런 세계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추구할 것인지 철저하게 지시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살빙톤**의 **미가엘**에게 충성하겠다는 공동(共同) 맹세를 했다. 그리고 **멜기세덱** 관제인들로 구성된 **유란시아** 단체가, 그들이 배정받은 세계의 통치권을 양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그 통치 기관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정식으로 권고 받았다.

예루셈에서 선택된 이 한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그 외에도 다른 곳에 100명의 자손--곧 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남겨뒀는데, 이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함정을 피한 훌륭한 피조물이었고, 부모가 **유란시아**를 향해서 떠날 때, 우주의 책임을 맡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모두 임명됐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증여를 수락하는 마지막 예식과 관련된 작별 연습이 있고 나서, **물질 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했다. 이 자손들은 그들 계층의 비물질화 본부까지 부모를 따라갔고, 스랍 운송선에 탑승할 준비에 앞서 진행되는, 의식(意識)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인격 속에서의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안녕과 신성한 번영을 빌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곧 **사타니아** 체계에 속한 606호 행성의 실제 단독 통치자인,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가 되리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의 회합을 잠시 함께 즐겼다.

74:1.1 (828.2)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were members of th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on Jerusem, being jointly number 14,311. They belonged to the third physical series and were a little more than eight feet in height.

74:1.2 (828.3) At the time Adam was chosen to come to Urantia, he was employed, with his mate, in the trial-and-testing physical laboratories of Jerusem. For more than fifteen thousand years they had been directors of the division of experimental energy as applied to the modification of living forms. Long before this they had been teachers in the citizenship schools for new arrivals on Jerusem. And all this should be borne in mind in connection with the narration of their subsequent conduct on Urantia.

74:1.3 (828.4) When the proclamation was issued calling for volunteers for the mission of Adamic adventure on Urantia, the entir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volunteered. The Melchizedek examiners, with the approval of Lanaforge and the Most Highs of Edentia, finally selected the Adam and Eve who subsequently came to function as the biologic uplifters of Urantia.

74:1.4 (828.5) Adam and Eve had remained loyal to Michael during the Lucifer rebellion; nevertheless, the pair were called before the System Sovereign and his entire cabinet for examination and instruction. The details of Urantia affairs were fully presented; they were exhaustively instructed as to the plans to be pursued in accepting the responsibilities of rulership on such a strife-torn world. They were put under joint oaths of allegiance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to Michael of Salvington. And they were duly advised to regard themselves as subject to the Urantia corps of Melchizedek receivers until that governing body should see fit to relinquish rule on the world of their assignment.

74:1.5 (829.1) This Jerusem pair left behind them on the capital of Satania and elsewhere, one hundred offspring — fifty sons and fifty daughters — magnificent creatures who had escaped the pitfalls of progression, and who were all in commission as faithful stewards of universe trust at the time of their parents' departure for Urantia. And they were all present in the beautiful temple of the Material Sons attendant upon the farewell exercises associated with the last ceremonies of the bestowal acceptance. These children accompanied their parents to the dematerialization headquarters of their order and were the last to bid them farewell and divine speed as they fell asleep in the personality lapse of consciousness which precedes the preparation for seraphic transport. The children spent some time together at the family rendezvous rejoicing that their parents were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성공을_기원하는 가운데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부딪치게 될 모든 임무와 위험에 관해서도 충분히 지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책무가 기다리는 곳으로 출발했다.

2. 아담과 이브의 도착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깊이 잠들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무리가 거기 있었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두 존재, 즉 **반** 및 그의 충실한 동역자 **아마돈**과 직접 대면하게 됐다. **캘리개스차**가 이탈할 당시에 공헌했던 이 두 영웅이, 새로운 **동산** 주거지에서 그들을 땀 면저 환영했다.

에덴의 언어는 **아마돈**이 사용하는 **안돈**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새로운 스물네 글자로 된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언어를 현저히 개선시켰으며, **에덴**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때 그것이 **유란시아** 언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이 인간 방언을 완전히 터득했으므로, 이 **안돈**의 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통치자가 자기와 동일한 언어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에덴** 전역에 대단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고, 연락원들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소집된 소식 전달용 새들의 집결지로 급히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새들을 놓아줘라; 약속된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비둘기들이 전하게 하라.” 신자{信者}들이 사는 수백 개의 마을은 충실하게, 해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집에서_기른 이 비둘기들을 계속 공급했다.

아담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가까이_있는 수천 명의 부족민이 **반**과 **아마돈**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한편으로는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 몰려들었다.

깨어나자마자, **아담**과 **이브**는 공식 환영행사를 위해서 성전 북쪽 큰 언덕 위로 안내됐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언덕은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크게 확장됐고, 새로운 세계 통치자의 취임식을 위해서 준비됐다. **유란시아** 환영 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의 이 **아들**과 **딸**에 대한 환영행사를 여기서 정오에 가졌다. **아마돈**이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위원회는 여섯 개 **상익** 인종 각각의 대표; 중도자들의 실무 지휘관; **노족속**의 충성스런 딸이자 대변인인 **안난**; **동산**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의 아들이며, 돌아가신 부친의 계획을 집행한 **노**

soon to become the visible heads, in reality the sole rulers, of planet 606 in the system of Satania.

74:1.6 (829.2) And thus did Adam and Eve leave Jerusem amidst the acclaim and well-wishing of its citizens. They went forth to their new responsibilities adequately equipped and fully instructed concerning every duty and danger to be encountered on Urantia.

2. ARRIVAL OF ADAM AND EVE

74:2.1 (829.3) Adam and Eve fell asleep on Jerusem, and when they awakened in the Father's temple on Urantia in the presence of the mighty throng assembled to welcome them,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wo beings of whom they had heard much, Van and his faithful associate Amadon. These two heroes of the Caligastia secession were the first to welcome them in their new garden home.

74:2.2 (829.4) The tongue of Eden was an Andonic dialect as spoken by Amadon. Van and Amadon had markedly improved this language by creating a new alphabet of twenty-four letters, and they had hoped to see it become the tongue of Urantia as the Edenic culture would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dam and Eve had fully mastered this human dialect before they departed from Jerusem so that this son of Andon heard the exalted ruler of his world address him in his own tongue.

74:2.3 (829.5) And on that day there was great excitement and joy throughout Eden as the runners went in great haste to the rendezvous of the carrier pigeons assembled from near and far, shouting: “Let loose the birds; let them carry the word that the promised Son has come.” Hundreds of believer settlements had faithfully, year after year, kept up the supply of these home-reared pigeons for just such an occasion.

74:2.4 (829.6) As the news of Adam's arrival spread abroad, thousands of the near-by tribesmen accepted the teachings of Van and Amadon, while for months and months pilgrims continued to pour into Eden to welcome Adam and Eve and to do homage to their unseen Father.

74:2.5 (829.7) Soon after their awakening, Adam and Eve were escorted to the formal reception on the great mound to the north of the temple. This natural hill had been enlarged and made ready for the installation of the world's new rulers. Here, at noon, the Urantia reception committee welcomed this Son and Daughter of the system of Satania. Amadon was chairman of this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twelve members embracing a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six Sangik races; the acting chief of the midwayers; Annan, a loyal daughter and spokesman for the Nodites; Noah,

아; 그리고 두 명의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를 포함해서, 모두 열두 명으로 이뤄졌다.

다음 행사는, **유란시아**의 관재인신분 협의회 우두머리인, 선임{先任} **멜기세덱**이 행성 관리 책임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는 의식{儀式}이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노라티아덱**의 **지고자**들과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반**이 그들을 **유란시아** 통치자로 선언했는데, **반**은 이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결의한 덕분에 15만 년이 넘도록 지녀온 직함에 따른 권세를 양도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로서 공식 취임을 하는 행사가 있던 이 날, **아담**과 **이브**는 왕의 예복을 입었다. **달라마시아**의 모든 기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에덴** 시대에도 천짜기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다.

그 후에 천사장의 선포가 있었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심판 출석점호가 선언됐으며, **사타니아**의 606_번 행성에서 은총과 자비의 두 번째 섭리시대에 속하는 잠자고 있던 생존하는 자들의 부활이 이뤄졌다. **왕자**의 섭리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행성 시기인 **아담** 시대가 소박하지만 웅대한 모습으로 시작됐으며; 이 행성에서 권한을 가졌던 전임자의 협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유란시아**의 새 통치자들은 길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됐다.

3.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식 취임식이 끝나게 되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행성이 격리돼 있음을 고통스럽게 자각했다. 익숙했던 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행성외계{行星外界} 소통 회로도 전혀 없었다. 그들의 **예루셈** 동료들은, 잘_자리잡은 **행성 왕자**와 경험 있는 참모진, 즉 그런 세계에서 초기에 체험을 겪는 동안 그들을 받아들이 준비가 돼있고 그들과 협동할 유능한 참모진이 있는, 순조롭게 운영되는 세계들로 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반역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이곳에는 **행성 왕자**가 매우 자주 등장해서, 비록 악행으로 인해 그의 힘을 대부분 빼앗겼더라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과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보름달 아래서, **동산**을 거닐면서 다음 날 계획을 의논하던 **예루셈**의 **아들**과 **딸**은 심각했고 환상에서 깨났다.

아담과 **이브**는 **캘리개스차**의 배신으로 혼란되고 고립된 행성인 **유란시아**에서 첫 날을 그렇게

the son of the architect and builder of the Garden and executive of his deceased father's plans; and the two resident Life Carriers.

74:2.6 (830.1) The next act was the delivery of the charge of planetary custody to Adam and Eve by the senior Melchizedek, chief of the council of receivership on Urantia.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ook the oath of allegiance to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and to Michael of Nebadon and were proclaimed rulers of Urantia by Van, who thereby relinquished the titular authority which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he had held by virtue of the actio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74:2.7 (831.2) And Adam and Eve were invested with kingly robes on this occasion, the time of their formal induction into world rulership. Not all of the arts of Dalamatia had been lost to the world; weaving was still practiced in the days of Eden.

74:2.8 (830.3) Then was heard the archangels' proclamation, and the broadcast voice of Gabriel decreed the second judgment roll call of Urantia and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the second dispensation of grace and mercy on 606 of Satania. The dispensation of the Prince has passed; the age of Adam, the third planetary epoch, opens amidst scenes of simple grandeur; and the new rulers of Urantia start their reign under seemingly favorable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world-wide confusion occasioned by lack of the co-operation of their predecessor in authority on the planet.

3. ADAM AND EVE LEARN ABOUT THE PLANET

74:3.1 (830.4) And now, after their formal installation, Adam and Eve became painfully aware of their planetary isolation. Silent were the familiar broadcasts, and absent were all the circuits of extraplanetary communication. Their Jerusalem fellows had gone to worlds running along smoothly with a well-established Planetary Prince and an experienced staff ready to receive them and competent to co-operate with them during their early experience on such worlds. But on Urantia rebellion had changed everything. Here the Planetary Prince was very much present, and though shorn of most of his power to work evil, he was still able to make the task of Adam and Eve difficult and to some extent hazardous. It was a serious and disillusioned Son and Daughter of Jerusalem who walked that night through the Garden under the shining of the full moon, discussing plans for the next day.

74:3.2 (830.5) Thus ended the first day of Adam and Eve on isolated Urantia, the confused planet of the

보냈으며;이 세상에서 지내는 첫 날 밤에, 늦게까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했다--그리고 무척 외로운 밤이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이 맞은 둘째 날은, 행성 관제인들 및 자문 협의회와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다. **아담**과 **이브**는, **멜기세덱**들과 그 동역자들로부터, **캘리개스차** 반역에 관한 세부사항과 세상의 진보 과정에 일어난 그 격변의 결과에 관해서 더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실망스런 이야기, 즉 세상의 직무를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긴 설명이었다. 그들은, 사회 진화 과정을 가속화 시키려 했던 **캘리개스차**의 책략이 완전히 붕괴된 것에 관한 모든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신성한 진보 계획과는 별개로 행성의 향상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도 충분히 깨닫게 됐다. 슬프기는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가--곧 **유란시아**에서 둘째 날이-- 이렇게 저물었다.

셋째 날은 **동산**을 시찰하면서 보냈다. 커다란 여객용{旅客用} 새--곧 환도르--를 타고 **동산** 위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광대하게 뻗어있는 그곳을 내려다봤다. 시찰을 단행한 이 날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룩하려고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대한 연회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셋째 날 밤늦게까지 **동산**을 거닐면서 자신에게 닥친 막대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넷째 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집회에서 연설했다. 그들은 취임식 날 올라갔던 언덕에서, 세계를 재건할 자신들의 계획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유란시아**의 사회적 문명을, 죄와 반역의 결과로 추락된 낮은 수준으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이 날은 대단한 날이었으며, 세상 직무에 대한 새로운 경영을 책임질 남녀를 선정해서 협의회를 만든 기념으로 열린 향연과 함께 끝났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이 집단에 있었다는 사실과,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음을 주목하라! 세상 직무에 대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남자와 함께 나누는 한 여자 **이브**를 보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혁신이었다. 이 땅에서 넷째 날이 그렇게 끝났다.

다섯째 날은 임시 정부를 조직하는 일로 보냈는데, **멜기세덱** 관제인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게 될 날까지 활동하게 돼있는 경영진이었다.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의 여러 유형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냈다. **에덴**의 동쪽 벽을 따라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위를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활을 관찰했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거주하는 세계가 처한 혼란된 상태에서 질서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Caligastia betrayal; and they walked and talked far into the night, their first night on earth — and it was so lonely.

74:3.3 (830.6) Adam's second day on earth was spent in session with the planetary receivers and the advisory council. From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Adam and Eve learned more about the detail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and the result of that upheaval upon the world's progress. And it was, on the whole, a disheartening story, this long recital of the mismanagement of world affairs. They learned all the facts regarding the utter collapse of the Caligastia scheme for accelerating the process of social evolution. They also arrived at a full realization of the folly of attempting to achieve planetary advancement independently of the divine plan of progression. And thus ended a sad but enlightening day — their second on Urantia.

74:3.4 (831.1) The third day was devoted to an inspection of the Garden. From the large passenger birds — the fandors — Adam and Eve looked down upon the vast stretches of the Garden while being carried through the air over this, the most beautiful spot on earth. This day of inspection ended with an enormous banquet in honor of all who had labored to create this garden of Edenic beauty and grandeur. And again, late into the night of their third day, the Son and his mate walked in the Garden and talked about the immensity of their problems.

74:3.5 (831.2) On the fourth day Adam and Eve addressed the Garden assembly. From the inaugural mount they spoke to the people concerning their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world and outlined the methods whereby they would seek to redeem the social culture of Urantia from the low levels to which it had fallen as a result of sin and rebellion. This was a great day, and it closed with a feast for the council of men and women who had been selected to assume responsibilities in the new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Take note! women as well as men were in this group, and that was the first time such a thing had occurred on earth since the days of Dalamatia. It was an astounding innovation to behold Eve, a woman, sharing the honors and responsibilities of world affairs with a man. And thus ended the fourth day on earth.

74:3.6 (831.3) The fifth day was occupied with the organization of the temporary government, the administration which was to function until the Melchizedek receivers should leave Urantia.

74:3.7 (831.4) The sixth day was devoted to an inspection of the numerous types of men and animals. Along the walls eastward in Eden, Adam and Eve were escorted all day, viewing the animal life of the planet and arriving at a better understanding as to what must be done to bring

대해, 더 깊이 이해했다.

그날 **아담**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담**에게 보여준 수천 가지 동물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 **아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모두 크게 놀랐다. 그는 어느 동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본성과 습성을 지적했다. 어떤 물질 피조물이든지 보자마자, **아담**은 그 기원, 본성, 및 기능을 묘사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다. 이 시찰 여행에 그를 안내한 자들은, 세상의 새 통치자가 **사타니아** 전역에서 가장 유능한 해부학자 가운데 하나임을 알지 못했으며, **이브** 역시 같은 전문가였다. **아담**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 무리를 설명함으로써 동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문 후 여섯째 날이 저물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자신의 새 집에서 쉬었다. 그들은 **유란시아** 모험 가운데 첫 엿새는 매우 바쁘게 지냈고,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게 될 온전한 하루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담**이 **유란시아** 동물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지성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한 바로 전 날 체험은, 그의 훌륭한 취임식 연설 및 그의 멋진 자태와 함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고 지능을 압도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로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은 엎드려서 그들을 신{神}으로 숭배할 준비가 돼있었다.

4. 첫 격변

여섯째 날 밤에,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에덴** 중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성전 부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거기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수백 명의 열광하고 흥분한 남녀가, 자기네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부탁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뜻을 가졌지만, 새로운 지도자들의 다정스런 소박함과 민주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 직무를 맡아 볼 새롭게 구성된 정부 각료들은, **아담**과 그의 반역자가 너무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神性}이 육체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즉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신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숭배 대상이 될 만한 신분이라고 결정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와서 엿새 동안 보여준 놀라운 사건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

order out of the confusion of a world inhabited by such a variety of living creatures.

74:3.8 (831.5) It greatly surprised those who accompanied Adam on this trip to observe how fully he understood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imals shown him. The instant he glanced at an animal, he would indicate its nature and behavior. Adam could give names descrip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 of all material creatures on sight. Those who conducted him on this tour of inspection did not know that the world's new ruler was one of the most expert anatomists of all Satania; and Eve was equally proficient. Adam amazed his associates by describing hosts of living things too small to be seen by human eyes.

74:3.9 (831.6) When the sixth day of their sojourn on earth was over, Adam and Eve rested for the first time in their new home in “the east of Eden.” The first six days of the Urantia adventure had been very busy, and they looked forward with great pleasure to an entire day of freedom from all activities.

74:3.10 (831.7) But circumstances dictated otherwise. The experience of the day just past in which Adam had so intelligently and so exhaustively discussed the animal life of Urantia, together with his masterly inaugural address and his charming manner, had so won the hearts and overcome the intellects of the Garden dwellers that they were not only wholeheartedly disposed to accept the newly arrived Son and Daughter of Jerusem as rulers, but the majority were about ready to fall down and worship them as gods.

4. THE FIRST UPHEAVAL

74:4.1 (832.1) That night, the night following the sixth day, while Adam and Eve slumbered, strange things were transpiring in the vicinity of the Father's temple in the central sector of Eden. There, under the rays of the mellow moon, hundreds of enthusiastic and excited men and women listened for hours to the impassioned pleas of their leaders. They meant well, but they simply could not understand the simplicity of the fraternal and democratic manner of their new rulers. And long before daybreak the new and temporary administrators of world affairs reached a virtually unanimous conclusion that Adam and his mate were altogether too modest and unassuming. They decided that Divinity had descended to earth in bodily form, that Adam and Eve were in reality gods or else so near such an estate as to be worthy of reverent worship.

74:4.2 (832.2) The amazing events of the first six days of Adam and Eve on earth were entirely too much for the unprepared minds of even the

태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으며; 결국 그들은, 그 고귀한 쌍을 그날 정오에 **아버지** 성전에 모셔놓고, 경배의 절을 올리고, 복종의 서약을 하자는 제의에, 한결같이 동조했다. **동산** 거주자들은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진지했다.

반은 반대했다.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그들을 호위할 책임으로 **아담**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반**의 주장은 거부됐다. 사람들은 **반** 역시 너무 겸손하고, 조금도 주체넘지 않은 사람이며; 그 역시 신(神)에 가까운 자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땅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아담**의 도래를 위한 그런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열광하는 **에덴** 주민이, **반**을 붙잡아서 언덕 위에 모셔놓고 경배하러 하자, **반**은 중도자들과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중 틈에서 벗어나서 중도자들의 지도자를 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좋은 뜻을 갖기는 했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이 제안한 것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며; 그때, 여객용 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도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옮겼다. 이것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환영식을 개최했던 언덕으로 올라가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계층들에 관해 군중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경배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아담**은, 어떤 명예든지, 그리고 어떤 존경이든지 받아들이겠지만, 경배만큼은 절대로 받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그날은 중대한 날이었으며, 정오 직전에, 그 세계 통치자들의 취임을 **예루셈**이 인정한다는 허가서를 스랍 연락원들이 갖고 도착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군중으로부터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너희는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현존을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이 행위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다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서약으로 삼아라.” 그들은 모두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둘러서서 언덕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됐다. **에덴**에서 7일째 되는 날은 언제나 정오에 성전 집회로 모였고, 그날을 자기 수양의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 단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 경배를 드렸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서 즐겼다. **에덴**에서 이것이 법으로 확립된 적은 없

world's best men; their heads were in a whirl; they were swept along with the proposal to bring the noble pair up to the Father's temple at high noon in order that everyone might bow down in respectful worship and prostrate themselves in humble submission. And the Garden dwellers were really sincere in all of this.

74:4.3 (832.3) Van protested. Amadon was absent, being in charge of the guard of honor which had remained behind with Adam and Eve overnight. But Van's protest was swept aside. He was told that he was likewise too modest, too unassuming; that he was not far from a god himself, else how had he lived so long on earth, and how had he brought about such a great event as the advent of Adam? And as the excited Edenites were about to seize him and carry him up to the mount for adoration, Van made his way out through the throng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midwayers, sent their leader in great haste to Adam.

74:4.4 (832.4) It was near the dawn of their seventh day on earth that Adam and Eve heard the startling news of the proposal of these well-meaning but misguided mortals; and then, even while the passenger birds were swiftly winging to bring them to the temple, the midwayers, being able to do such things, transported Adam and Eve to the Father's temple. It was early on the morning of this seventh day and from the mount of their so recent reception that Adam held forth in explanation of the orders of divine sonship and made clear to these earth minds that only the Father and those whom he designates may be worshiped. Adam made it plain that he would accept any honor and receive all respect, but worship never!

74:4.5 (832.5) It was a momentous day, and just before noon, abou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eraphic messenger bearing the Jerusalem acknowledgment of the installation of the world's rulers, Adam and Eve, moving apart from the throng, pointed to the Father's temple and said: “Go you now to the material emblem of the Father's invisible presence and bow down in worship of him who made us all and who keeps us living. And let this act be the sincere pledge that you never will again be tempted to worship anyone but God.” They all did as Adam directed.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stood alone on the mount with bowed heads while the people prostrated themselves about the temple.

74:4.6 (832.6)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Sabbath-day tradition. Always in Eden the seventh day was devoted to the noontide assembly at the temple; long it was the custom to devote this day to self-culture. The forenoon was devoted to physical improvement, the noontime to spiritual worship, the afternoon to mind culture, while the evening

었지만, **아담**의 경영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관습으로 지켜졌다.

5. 아담의 경영

아담이 도착한 후로 거의 7년 동안,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 남아있었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들은 세상 직무의 경영을 **아담**에게 맡기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관재인들의 작별 인사가 하루 종일 계속됐고, 저녁에는 각 **멜기세덱**이 자기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충고와 최고의 희망사항을 **아담**과 **이브**에게 전했다. **아담**은 자문가들에게 자기와 함께 이 세상에 머물 것을 여러 번 요청했었지만, 그 청원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이 **물질 아들**이 세계 직무를 이끌어갈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사타니아** 스랍 운송선이 한 밤중에 열네 명의 존재를 태우고 행성을 떠나 **예루셈**으로 갔고, **반**과 **아마돈**을 옮기는 것도 열두 명의 **멜기세덱**이 출발함과 동시에 일어났다.

유란시아에서는 한동안 모든 것이 무난하게 진행됐고, **아담**이 결국에는 **에덴**의 문명을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멜기세덱**들의 충고에 따라서, 외부 세계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으로, 제조업 기술을 육성시키기 시작했다. **에덴**이 몰락했을 당시에, 100개 이상의 원시 제조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인근에 있는 부족(部族)들과 광범한 무역관계가 수립돼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진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특화된 기여를 준비하려고,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았었지만; 이제는 미개인, 야만인, 그리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 같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동산**에 모인, 지구(地球)의 주민 중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있는 집단은 여기저기에 겨우 몇 개밖에 없었다.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영웅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 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 전역에서 하나의 집단 통제 체계를 작동시켜 놓았고, 이 모든 무리를 **에덴**의 연맹체제에 속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동산** 밖의 세계로 나가서, 이 생각을 이방 부족들에게도 적용시키려 하자, 심각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아담**의 동역자들이 **동산** 외부(外部)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의 잘 계획된 직접 저항에 곧 부딪혔다. 몰락한 **왕자**는, 세계 통치자로서의 지위는 박탈됐지만, 아직 이 행성에서 제거되지 않

was spent in social rejoicing. This was never the law in Eden, but it was the custom as long as the Adamic administration held sway on earth.

5. ADAM'S ADMINISTRATION

74:5.1 (833.1) For almost seven years after Adam's arrival the Melchizedek receivers remained on duty, but the time finally came when they turned the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over to Adam and returned to Jerusalem.

74:5.2 (833.2) The farewell of the receivers occupied the whole of a day, and during the evening the individual Melchizedeks gave Adam and Eve their parting advice and best wishes. Adam had several times requested his advisers to remain on earth with him, but always were these petitions denied. The time had come when the Material Sons must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world affairs. And so, at midnight, the seraphic transports of Satania left the planet with fourteen beings for Jerusalem, the translation of Van and Amadon occurring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ure of the twelve Melchizedeks.

74:5.3 (833.3) All went fairly well for a time on Urantia, and it appeared that Adam would, eventually, be able to develop some plan for promoting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Edenic civilization. Pursuant to the advice of the Melchizedeks, he began to foster the arts of manufacture with the idea of developing trade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When Eden was disrupted, there were over one hundred primitive manufacturing plants in operation, and extensive trade relations with the near-by tribes had been established.

74:5.4 (833.4) For ages Adam and Eve had been instructed in the technique of improving a world in readiness for their specialized contributions to the advancement of evolutionary civilization; but now they were face to face with pressing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order in a world of savages, barbarians, and semicivilized human beings. Aside from the cream of the earth's population, assembled in the Garden, only a few groups, here and there, were at all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Adamic culture.

74:5.5 (833.5) Adam made a heroic and determined effort to establish a world government, but he met with stubborn resistance at every turn. Adam had already put in operation a system of group control throughout Eden and had federated all of these companies into the Edenic league. But trouble, serious trouble, ensued when he went outside the Garden and sought to apply these ideas to the outlying tribes. The moment Adam's associates began to work outside the Garden, they met the direct and well-planned resistance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The fallen Prince had been

고 있었다. 그는 이 땅에 여전히 있었고, 인간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은, **캘리개스차**를 대항하도록 부족들에게 경고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대적(大敵)이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과제는 무척 어려웠다.

심지어 **에덴** 사람 가운데서도,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캘리개스차**의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혼동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담**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켰으며; 질서 있게 진보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담**이 짜놓은 최상의 계획을 항상 뒤엎었다. 마침내 그는 즉각적인 사회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이 조직했던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에덴** 주민을 10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했고, 각 집단마다 지휘관을 뒀으며, 열 명의 모임마다 보좌관을 뒀다.

아담과 **이브**는, 군주제(君主制)를 대체하는 대의정부를 설립하게 돼있었지만, 온 지구상에서 그 이름에 어울릴만한 어떤 정부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담**은 대의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당분간 포기했으며, **에덴**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거의 100개에 이르는 외부의 무역 및 사회 중심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는데, 중심지마다 강력한 개인이 **아담**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이 중심지들 대부분은, **반**과 **아마돈**이 전에 조직한 것이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파견하는 일이, **아담** 시대부터 생겨났다. 이것은 정부의 진화에서 큰 진전이였다.

deposed as world ruler, but he had not been removed from the planet. He was still present on earth and able, at least to some extent, to resist all of Adam's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human society. Adam tried to warn the races against Caligastia, but the task was made very difficult because his archenemy was invisible to the eyes of mortals.

74:5.6 (833.6) Even among the Edenites there were those confused minds that leaned toward the Caligastia teaching of unbridled personal liberty; and they caused Adam no end of trouble; always were they upsetting the best-laid plans for orderly progression and substantial development. He was finally compelled to withdraw his program for immediate socialization; he fell back on Van's method of organization, dividing the Edenites into companies of one hundred with captains over each and with lieutenants in charge of groups of ten.

74:5.7 (834.1) Adam and Eve had come to institute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e place of monarchical, but they found no government worthy of the nam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or the time being Adam abandoned all effort to establish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before the collapse of the Edenic regime he succeeded in establishing almost one hundred outlying trade and social centers where strong individuals ruled in his name. Most of these centers had been organized aforetime by Van and Amadon.

74:5.8 (834.2) The sending of ambassadors from one tribe to another dates from the times of Adam. This was a great forward step in the evolution of government.

6.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아담 가족의 주거지는 5평방 마일을 약간 넘었다. 이 택지(宅地)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구역은, 순수 혈통을 지닌 자손을 3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입안된 건물 중에서 지금까지 오직 첫 단지(團地)의 건물들만 완성됐다. **아담** 가족의 수효가 이런 초기 설비보다 더 많아지기 전에 **에덴**의 계획 전체가 파괴됐고, **동산**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아담선은 **유란시아**의 보라색 인종 중에서 첫 태생이었고, 그 밑으로 누이동생이 태어났으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이브선**이 태어났다. **멜기세덱**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브**는 다섯 자녀--곧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됐다. 두 딸은 쌍둥이였다. **이브**는 직무에 태만하기 전까지 모두 6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2명의 딸과 31명의 아들이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은 4대를 이뤘고, 순수 혈통 자손의 숫자는 1,647명에 달했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후에 또 마흔두 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그 외에 이 세상

6. HOME LIFE OF ADAM AND EVE

74:6.1 (834.3) The Adamic family grounds embraced a little over five square miles. Immediately surrounding this homesite, provision had been made for the care of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of the pure-line offspring. But only the first unit of the projected buildings was ever constructed. Before the size of the Adamic family outgrew these early provisions, the whole Edenic plan had been disrupted and the Garden vacated.

74:6.2 (834.4) Adamson was the first-born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being followed by his sister and Eveson, the second son of Adam and Eve. Eve was the mother of five children before the Melchizedeks left —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The next two were twins. She bore sixty-three children, thirty-two daughters and thirty-one sons, before the default. When Adam and Eve left the Garden, their family consisted of four generations numbering 1,647 pure-line descendants. They had forty-two children after

필사자 혈통과 결합해서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노족속** 및 진화 인종들로 이어지는 **아담** 혈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담의 자녀는 생후 1년이 지나서 엄마 젖을 떼 후에도, 동물에서 나온 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브**는 젖을 떼 후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 유액(乳液)이나 여러 가지 과일 즙을 먹었는데, 이 음식의 에너지와 화학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가 전부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었다.

에덴에서 **아담**의 주거지역 밖에서는 익혀먹기가 널리 이용된 반면, **아담**의 가족 중에서는 익혀서 먹지 않았다. 그들은 충분히 여문 것들--과일, 견과류, 및 곡류--로 자신의 양식을 마련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직후에 식사를 했다. 또한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의 효력과 연관되는 특정한 공간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섭취했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는 희미한 빛을 발산했지만, 그들은 항상 동역자들의 관습과 비슷하게 옷을 입었다. 낮 동안에는 아주 조금만 입었고, 황혼 무렵에는 밤 외투를 걸쳤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나타낼 때, 머리 뒤로 둥그렇게 둘러싼 후광(後光)을 표현하는 전통은, 그 기원이 **아담**과 **이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가 옷으로 가려졌으므로, 오직 머리 둘레에서만 광채를 볼 수 있었다. **아담**의 후손은, 영적 성장에서 비범하다고 믿어지는 개인들에 대한 개념을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아담과 **이브**는, 약 50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서로, 그리고 직계 후손들과도, 즉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 전달은, 그들의 대뇌 구조물에 아주 근접해 있는 섬세한 공기 주머니들을 이용함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이 기법(技法)으로 생각의 진동(振動)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정신이 악의 불협화음과 분열에 굴복하는 즉시 정지됐다.

아담의 자녀는,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연장자가 동생을 가르치는 그들 자체 학교에 다녔다. 어린아이들은 매 30분마다 활동을 바꿨고, 조금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한 시간마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이 순전히 재미를 위해 즐겁고 신나는 활동에 빠져있는 모습은, **유란시아**에서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오늘날 인종들의 놀이와 유머는 주로 **아담**의 혈통에서 유래했다. **아담**족속은 모두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약혼하는 평균 연령은 열여덟 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부부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 2년간의 훈육 과정에 들어갔다. 그들

leaving the Garden besides the two offspring of joint parentage with the mortal stock of earth. And this does not include the Adamic parentage to the Nodite and evolutionary races.

74:6.3 (834.5) The Adamic children did not take milk from animals when they ceased to nurse the mother's breast at one year of age. Eve had access to the milk of a great variety of nuts and to the juices of many fruits, and knowing full well the chemistry and energy of these foods, she suitably combined them for the nourishment of her children until the appearance of teeth.

74:6.4 (834.6) While cooking was universally employed outside of the immediate Adamic sector of Eden, there was no cooking in Adam's household. They found their foods — fruits, nuts, and cereals — ready prepared as they ripened. They ate once a day, shortly after noontime. Adam and Eve also imbibed “light and energy” direct from certain space eman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the tree of life.

74:6.5 (834.7) The bodies of Adam and Eve gave forth a shimmer of light, but they always wore clothing in conformity with the custom of their associates. Though wearing very little during the day, at eventide they donned night wraps. The origin of the traditional halo encircling the heads of supposed pious and holy men dates back to the days of Adam and Eve. Since the light emanations of their bodies were so largely obscured by clothing, only the radiating glow from their heads was discernible. The descendants of Adamson always thus portrayed their concept of individuals believed to be extraordinary in spiritual development.

74:6.6 (834.8) Adam and Eve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ir immediate children over a distance of about fifty miles. This thought exchange was effected by means of the delicate gas chambers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ir brain structures. By this mechanism they could send and receive thought oscillations. But this power was instantly suspended upon the mind's surrender to the discord and disruption of evil.

74:6.7 (835.1) The Adamic children attended their own schools until they were sixteen, the younger being taught by the elder. The little folks changed activities every thirty minutes, the older every hour. And it was certainly a new sight on Urantia to observe these children of Adam and Eve at play, joyous and exhilarating activity just for the sheer fun of it. The play and humor of the present-day races are largely derived from the Adamic stock. The Adamites all had a great appreciation of music as well as a keen sense of humor.

74:6.8 (835.2) The average age of betrothal was eighteen, and these youths then entered upon a two years' course of instruction in preparation for

은 스무 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결혼 후에는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위해서 다른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다.

후대의 어떤 나라들에서, 신들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왕족(王族)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했는데, 이 전통은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유래했다--그렇게 서로 결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다. **동산**에서 첫째 세대와 둘째 세대의 결혼 예식은, 반드시 **아담**과 **이브**가 주관했다.

7. 동산의 생활

아담의 자녀는, 서쪽에 있는 학교에 4년 동안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들은, **예루셈** 학교의 방식에 따라서,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지적{知的}으로 훈련받았다. 열여섯 살에서 스무 살까지는, **동산** 반대쪽 끝에 있는 **유란시아** 학교에서 배웠는데, 거기서는 비교적 낮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선생으로서 봉사하기도 했다.

동산 서쪽에 있는 학교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화**{社會化}였다. 휴식이 있기 전의 오전{午前} 수업시간에는 원예업과 농업 실습으로 보냈고, 오후 수업시간에는 경쟁하는 놀이를 했다. 저녁시간은 사회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연마하는 데 이용됐다. 종교 및 성{性} 교육은, 가정의 직분, 즉 부모의 의무로 간주됐다.

이 학교들의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포함됐다:

1. 건강과 몸을 돌보는 일.
2. 황금률{黃金律}, 즉 사회 교제의 표준.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무.
4. 이 세상의 여러 인종의 역사와 문화.
5.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
6. 임무와 감정의 갈등을 조정하기.
7. 오락, 유머, 그리고 육체적 싸움을 대신하는 경쟁체제를 양성함.

사실상 **동산**의 모든 활동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는, 방문자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참관인이 **에덴**을 잠깐 방문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됐다. **유란시아인**이 **동산**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양돼야만” 했다. 그는 **아담**의 증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교육받았고, 이 사명

the assumption of marital responsibilities. At twenty they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after marriage they began their lifework or entered upon special preparation therefor.

74:6.9 (835.3) The practice of some subsequent nations of permitting the royal families, supposedly descended from the gods, to marry brother to sister, dates from the traditions of the Adamic offspring — mating, as they must needs, with one another. The marriage ceremonie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the Garden were always performed by Adam and Eve.

7. LIFE IN THE GARDEN

74:7.1 (835.4) The children of Adam, except for four years' attendance at the western schools, lived and worked in the “east of Eden.” They were trained intellectually until they were sixtee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of the Jerusalem schools. From sixteen to twenty they were taught in the Urantia schools at the other end of the Garden, serving there also as teachers in the lower grades.

74:7.2 (835.5) The entire purpose of the western school system of the Garden was *socialization*. The forenoon periods of recess were devoted to practical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the afternoon periods to competitive play. The evenings were employed in social intercourse and the cultivation of personal friendships. Religious and sexual training were regarded as the province of the home, the duty of parents.

74:7.3 (835.6) The teaching in these schools included instruction regarding:

- 74:7.4 (835.7) 1. Health and the care of the body.
- 74:7.5 (835.8) 2. The golden rule, the standard of social intercourse.
- 74:7.6 (835.9) 3. The relation of individual rights to group rights and community obligations.
- 74:7.7 (835.10) 4. History and culture of the various earth races.
- 74:7.8 (835.11) 5. Methods of advancing and improving world trade.
- 74:7.9 (835.12) 6. Co-ordination of conflicting duties and emotions.
- 74:7.10 (835.13) 7. The cultivation of play, humor, and competitive substitutes for physical fighting.

74:7.11 (835.14) The schools, in fact every activity of the Garden, were always open to visitors. Unarmed observers were freely admitted to Eden for short visits. To sojourn in the Garden a Urantian had to be “adopted.” He received instructions in the plan and purpose of the Adamic

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그 다음에는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주권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동산의 법률은 **달라마시아**의 옛 규범에 기초를 뒀고, 다음과 같은 일곱 항목을 중심으로 선포했다:

1.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률.
2. **동산**의 사회 규칙.
3. 무역과 상업에 관한 규범.
4. 공정한 경기와 시합에 관한 법률.
5.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6. 황금률에 관한 시민 규범.
7. 최상의 도덕적 규정인, 일곱 가지 계명.

에덴의 도덕규범은 **달라마시아**의 일곱 계명과는 약간 달랐다. 그러나 **아담족속**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여러 추가적 이유를 가르쳤는데; 예를 들면,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추가적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주{內住}하는 **사고 조율사**를 제시했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마다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에덴의 대중 경배 시간은 정오였고; 해 질 무렵은 가족 경배 시간이었다. **아담**은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온전히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혼의 열망”이 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에덴** 주민은 **달라마시아** 시대부터 전해 온 기도문과 형식을 계속 사용했다. 또한 **아담**은, 종교 예식에서 피 흘리는 제물 대신 땅에서 난 과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동산**이 몰락할 때까지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아담은 남녀평등을 인종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브**가 남편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모습은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아담**은,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생명 요소를,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때까지 인류는, 모든 생식력이 “**아버지**의 허리” 속에 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어머니는 단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태어난 뒤에는 기르는 역할만 할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담은 당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인종들 가운데 비교적 영리한 사람들은, 우수한 보라색 인종 자손과 서로 결혼이 허락될 그날

bestowal, signified his intention to adhere to this mission, and then made declaration of loyalty to the social rule of Adam and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the Universal Father.

74:7.12 (836.1) The laws of the Garden were based on the older codes of Dalamatia and were promulgated under seven heads:

- 74:7.13 (836.2) 1. The laws of health and sanitation.
- 74:7.14 (836.3) 2. The social regulations of the Garden.
- 74:7.15 (836.4) 3. The code of trade and commerce.
- 74:7.16 (836.5) 4. The laws of fair play and competition.
- 74:7.17 (836.6) 5. The laws of home life.
- 74:7.18 (836.7) 6. The civil codes of the golden rule.
- 74:7.19 (836.8) 7. The seven commands of supreme moral rule.

74:7.20 (836.9) The moral law of Eden was little different from the seven commandments of Dalamatia. But the Adamites taught many additional reasons for these commands; for instance, regarding the injunction against murder, the indwelling of the Thought Adjuster was presented as an additional reason for not destroying human life. They taught that “whoso sheds man’s blood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made he man.”

74:7.21 (836.10) The public worship hour of Eden was noon; sunset was the hour of family worship. Adam did his best to discourage the use of set prayers, teaching that effective prayer must be wholly individual, that it must be the “desire of the soul”; but the Edenites continued to use the prayers and forms handed down from the times of Dalamatia. Adam also endeavored to substitute the offerings of the fruit of the land for the blood sacrifices in the religious ceremonies but had made little progress before the disruption of the Garden.

74:7.22 (836.11) Adam endeavored to teach the races sex equality. The way Eve worked by the side of her husband made a profound impression upon all dwellers in the Garden. Adam definitely taught them that the woman, equally with the man, contributes those life factors which unite to form a new being. Theretofore, mankind had presumed that all procreation resided in the “loins of the father.” They had looked upon the mother as being merely a provision for nurturing the unborn and nursing the newborn.

74:7.23 (836.12) Adam taught his contemporaries all they could comprehend, but that was not very much, comparatively speaking. Nevertheless, the more intelligent of the races of earth looked forward eagerly to the time when they would be

을 간절히 고대했다. 인종을 향상시키는 이 위대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유란시아**는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됐겠는가! 심지어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진화하는 민족들이 우연히 간직하게 된, 외계로부터 도래한 이 인종의 소량의 피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이런 뒤섞이고 잡다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8. 창조설화

6일 만에 **유란시아**가 창조됐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시찰하기에 6일 걸렸던 사건에 근거했다. 이런 상황은, 원래 **달라마시아인**이 소개했던 1주일이라는 기간에, 거의 신성시되는 구속력을 더했다. **아담**이 **동산**을 시찰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6일을 소비한 것은, 미리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하루하루 일하다보니 그렇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제 7일을 경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서술한 사실들에 따라서 일어난, 전적으로 우연한 것이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은, 사실, 이때로부터 3만 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인, 해와 달이 갑자기 생겼다는 일화는, 아마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미세한 물질로 이뤄진 질은 공간 구름으로부터 세계가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한때의 전통에서 기원된 것처럼 보인다.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도착한 것과, 45만년보다 더 전에,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이 온 것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물질을 교환하는 천상{天上}의 수술을 받은 것과 뒤섞여 혼동되면서, 잘못 결합된 것이다.

세상사람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는 즉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육체 형상을 입었다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東半球}에서 거의 보편적이었으며; 이 전통은 **필리핀 군도**{群島}로부터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집단이, 점진적으로 창조됐다는--곧 진화했다는-- 초기의 믿음 대신, 사람이 어떤 특별 창조 형식으로 진흙에서 기원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져서, 인류는 인간 종족이 점차 향상됐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라는 사실은 현대에 발견된 것이 아니며; 옛 사람들은 인간 진보의 느린 진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인**은 **메소포**

permitted to intermarry with the superior children of the violet race. And what a different world Urantia would have become if this great plan of uplifting the races had been carried out! Even as it was, tremendous gains resulted from the small amount of the blood of this imported race which the evolutionary peoples incidentally secured.

74:7.24 (836.13) And thus did Adam work for the welfare and uplift of the world of his sojourn. But it was a difficult task to lead these mixed and mongrel peoples in the better way.

8. THE LEGEND OF CREATION

74:8.1 (836.14) The story of the creation of Urantia in six days was based on the tradition that Adam and Eve had spent just six days in their initial survey of the Garden. This circumstance lent almost sacred sanction to the time period of the week, which had been originally introduced by the Dalamatians. Adam's spending six days inspecting the Garden and formulating preliminary plans for organization was not prearranged; it was worked out from day to day. The choosing of the seventh day for worship was wholly incidental to the facts herewith narrated.

74:8.2 (837.1) The legend of the making of the world in six days was an afterthought, in fact,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afterwards. One feature of the narrative,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sun and moon, may have taken origin in the traditions of the onetime sudden emergence of the world from a dense space cloud of minute matter which had long obscured both sun and moon.

74:8.3 (837.2) The story of creating Eve out of Adam's rib is a confused condensation of the Adamic arrival and the celestial surgery connected with the interchange of living substances associated with the coming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more than four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previously.

74:8.4 (837.3) The majority of the world's peopl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tradition that Adam and Eve had physical forms created for them upon their arrival on Urantia. The belief in man's having been created from clay was well-nigh universal in the Eastern Hemisphere; this tradition can be traced from the Philippine Islands around the world to Africa. And many groups accepted this story of man's clay origin by some form of special creation in the place of the earlier beliefs in progressive creation — evolution.

74:8.5 (837.4) Away from the influences of Dalamatia and Eden, mankind tended toward the belief in the gradual ascent of the human race. The fact of evolution is not a modern discovery; the ancients understood the slow and evolutionary character of

타미아에 근접해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에 대해 확실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의 진화 개념이 딱할 정도로 뒤죽박죽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많은 원시 부족은 자신이 여러 가지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동물을 “토템”으로 선택했다. 어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이 비이버 또는 늑대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다.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자신이 하이에나로부터, 한 **말레이** 종족은 여우원숭이로부터, 한 **뉴기니아**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친다.

바빌로니아인은 **아담족속** 문명의 잔재와 직접 접촉했으므로, 인간 창조 이야기를 확대시키고 미화시켰으며; 그들은 **아담**이 신(神)들의 직계 후손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그 인종이 귀족에서 기원했다고 고집했는데, 이는 진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교리와도 모순됐다.

구약 성경의 창조 설화(說話)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왔으며; **모세**는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히브리인**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에 관한 간단하고 함축된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창조주**이신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호소할 때 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자신의 초기 교훈에서 매우 현명하게도, **아담**의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모세**는 **히브리인**의 최고 스승이었으므로,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 설화와 밀접하게 결합됐다. 더 초기의 전승이 **아담** 이전 {以前}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대 이전의 인간사{人間事}에 관한 모든 언급을 없애버리려고 의도했던 후세의 편집자들이, **가인**이 “**노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아내를 취했다는, 내막을 드러내는 언급을, 무심코 넘겨 버리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히브리인은 **팔레스틴**에 도착한 후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블레셋족속**으로부터 알파벳 사용법을 배웠는데, 그들은 더 높은 문명권인 **크레테**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인**은 기원전 약 9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런 후대까지도 문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창조 설화가 유포돼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변경된 **메소포타미아** 역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유대인 전통이 **모세**를 중심으로 구체화 됐으며,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추적해서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정했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은 첫 사람으로 간주됐으므로, **아**

human progress. The early Greeks had clear ideas of this despite their proximity to Mesopotamia. Although the various races of earth became sadly mixed up in their notions of evolution, nevertheless, many of the primitive tribes believed and taught that they were the descendants of various animals. Primitive peoples made a practice of selecting for their “totems” the animals of their supposed ancestry. Certain North American Indian tribes believed they originated from beavers and coyotes. Certain African tribes teach that they are descended from the hyena, a Malay tribe from the lemur, a New Guinea group from the parrot.

74:8.6 (837.5) The Babylonians, because of immediate contact with the remnants of the civilization of the Adamites, enlarged and embellished the story of man's creation; they taught that he had descended directly from the gods. They held to an aristocratic origin for the race which was incompatible with even the doctrine of creation out of clay.

74:8.7 (837.6) The Old Testament account of creation dates from long after the time of Moses; he never taught the Hebrews such a distorted story. But he did present a simple and condensed narrative of creation to the Israelites, hoping thereby to augment his appeal to worship the Creator, the Universal Father, whom he called the Lord God of Israel.

74:8.8 (837.7) In his early teachings, Moses very wisely did not attempt to go back of Adam's time, and since Moses was the supreme teacher of the Hebrews, the stories of Adam became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ose of creation. That the earlier traditions recognized pre-Adamic civilization is clearly shown by the fact that later editors, intending to eradicate all reference to human affairs before Adam's time, neglected to remove the telltale reference to Cain's emigration to the “land of Nod,” where he took himself a wife.

74:8.9 (838.1) The Hebrews had no written language in general usage for a long time after they reached Palestine. They learned the use of an alphabet from the neighboring Philistines, who were political refugees from the higher civilization of Crete. The Hebrews did little writing until about 900 B.C., and having no written language until such a late date, they had several different stories of creation in circulation, but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they inclined more toward accepting a modified Mesopotamian version.

74:8.10 (838.2) Jewish tradition became crystallized about Moses, and because he endeavored to trace the lineage of Abraham back to Adam, the Jews assumed that Adam was the first of all mankind. Yahweh was the creator, and since Adam was supposed to be the first man, he must

훼가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6일 전통이 하나의 설화로 섞여 들어갔는데, 그 결과로, 모세가 땅에 머문지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6일 창조 전통이 글로 기록됐고, 나중에는 모세가 그 글을 썼다고 공적을 돌렸다.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만물의 시작에 관한 설화의 기록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곧, 이 이야기는 최근에 발견된, 모세가 기록한 창조 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에, 당시의 유대인은, 이 문헌들이 나중에 신성한 계시로 여겨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후세의 민족들이 그것을 신화 같은 설화 정도로 여기리라고 생각했다.

모세의 교훈이라고 평판이 난 이 위조문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인 왕 프톨레마이오스의 관심을 끌게 됐고, 그는 70명의 학자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신의 세 도서관을 위해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서{聖書}”라는 수집된 작품 가운데 일부가 되는 문서들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 동일시됨으로써, 그런 개념들은 오랫동안 여러 서양 민족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 교사들은, 명령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믿음을 영구화시켰으며,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유토피아처럼 행복을 누렸던 한때의 황금기에 대한 가설(假說)이 형성됐고, 유토피아가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 사람 또는 초인(超人)이 타락한 탓으로 돌리는 이론이 직접 형성됐다.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서 사람의 처지에 대한 이런 관점은, 기껏해야 낙담하게 만들 뿐이었는데, 왜냐하면 행성 경영자들이 저지른 한때의 실책들 때문에, 이를 징벌하려고 인류에게 진노를 퍼붓는, 복수심에 불타는 신격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진보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한다는 믿음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황금기”는 신화(神話)이지만, 에덴은 사실이었으며;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멸망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끈기 있게 견뎌지만, 그 당시에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판단 실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정된 길에서 감히 벗어났으며, 자신들은 신속하게 재난에 처하게 됐음은 물론, 과멸을 초래할 만큼, 온 유란시아의 발전적 진행을 지연시켰다.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have made the world just prior to making Adam. And then the tradition of Adam's six days got woven into the story, with the result that almost a thousand years after Moses' sojourn on earth the tradition of creation in six days was written out and subsequently credited to him.

74:8.11 (838.3) When the Jewish priests returned to Jerusalem, they had already completed the writing of their narrative of the beginning of things. Soon they made claims that this recital was a recently discovered story of creation written by Moses. But the contemporary Hebrews of around 500 B.C. did not consider these writings to be divine revelations; they looked upon them much as later peoples regard mythological narratives.

74:8.12 (838.4) This spurious document, reputed to be the teachings of Moses, wa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Ptolemy, the Greek king of Egypt, who had it translated into Greek by a commission of seventy scholars for his new library at Alexandria. And so this account found its place among those writings which subsequently became a part of the later collections of the “sacred scriptures” of the Hebrew and Christian religions. And through identification with these theological systems, such concepts for a long time profoundly influenced the philosophy of many Occidental peoples.

74:8.13 (838.5) The Christian teachers perpetuated the belief in the fiat creation of the human race, and all this led directly to the formation of the hypothesis of a onetime golden age of utopian bliss and the theory of the fall of man or superman which accounted for the nonutopian condition of society. These outlooks on life and man's place in the universe were at best discouraging since they were predicated upon a belief in retrogression rather than progression, as well as implying a vengeful Deity, who had vented wrath upon the human race in retribution for the errors of certain onetime planetary administrators.

74:8.14 (838.6) The “golden age” is a myth, but Eden was a fact, and the Garden civilization was actually overthrown. Adam and Eve carried on in the Garden for one hundred and seventeen years when, through the impatience of Eve and the errors of judgment of Adam, they presumed to turn aside from the ordained way, speedily bringing disaster upon themselves and ruinous retardation upon the developmental progression of all Urantia.

74:8.15 (838.7) [Narra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75편. 아담과 이브의 태만

⇨ 074

유란시아 책

07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5편
아담과 이브의 태만

섹션

소개

1. 유란시아의 문제
2. 캘리가스타의 계략
3. 이브를 유혹함
4. 태만했음을 깨달음
5. 태만의 영향
6.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7. 아담과 이브의 강등
8. 소위 인간의 타락

PAPER 75

THE DEFAULT OF ADAM AND EV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rantia Problem
2. Caligastia's Plot
3. The Temptation of Eve
4. The Realization of Default
5. Repercussions of Default
6. Adam and Eve Leave the Garden
7. Degradation of Adam and Eve
8. The So-Called Fall of Man

소개

아담은 유란시아에서 100년 이상 수고한 후에도, **동산** 바깥 세상에 진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상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인종 개량의 실현은 아득히 먼 일로 보였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본래 계획에 없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아담**의 마음에 종종 스쳐갔고, 그는 **이브**에게 자신의 심정을 여러 번 고백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충성스러웠지만, 그들의 족속으로부터 고립됐고, 그들이 맡은 세계의 유감스런 처지로 인해 몹시 힘들어했다.

INTRODUCTION

75:0.1 (839.1)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effort on Urantia, Adam was able to see very little progress outside the Garden; the world at large did not seem to be improving much. The realization of race betterment appeared to be a long way off, and the situation seemed so desperate as to demand something for relief not embraced in the original plans. At least that is what often passed through Adam's mind, and he so expressed himself many times to Eve. Adam and his mate were loyal, but they were isolated from their kind, and they were sorely distressed by the sorry plight of their world.

1. 유란시아의 문제

실험 중이고, 반역으로 파괴되고,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이행업무가 아니었다. 그리고 **물질 아들**과 **딸**은 자신의 행성 임무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들은 산적한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에 용기 있게 착수했다. 그러나 결함과 퇴보된 부분들을 인간 종족들 가운데서 제거하

1. THE URANTIA PROBLEM

75:1.1 (839.2) The Adamic mission on experimental, rebellion-seared, and isolated Urantia was a formidable undertaking. And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early became aware of the difficulty and complexity of their planetary assignment. Nevertheless, they courageously set about the task of solving their manifold problems. But when

기 위한 모든 중요한 업무에 그들이 막상 뛰어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 그들은 그 궁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예루셈**이 나 **에덴시아**에 있는 상관{上官}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립됐고,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문제와 매일 부딪혔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상 조건에서는, **행성 아담**과 **이브**가 협조해서 인종들의 피를 섞는 것이 첫째 업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런 기획이 가망 없는 듯 했는데, 인종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적당했지만, 그들 중에서 뒤떨어지거나 결함 있는 혈통들을 제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는, 사람의 형제관계를 선포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구체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 구체는 비참한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전에 있었던 경영진의 사명이 실패함으로 인해 더 악화된 혼란으로 저주받은 세계였다. 정신과 도덕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종교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시작하는 대신에, 주민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종교적 신념으로 전향시키는 업무를, 전부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채택하기에 알맞은 한 가지 언어를 발견하는 대신에, **아담**과 **이브**는 수백 가지 지방 방언을 사용하는, 전 세계적 혼동에 직면했다. 행성에서 봉사하는 어떤 **아담**도, 이보다 더 어려운 세계에 내려온 적이 없었을 것이며; 장애물은 넘기 힘들어 보였고, 문제는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고립됐고, **멜기세덱** 관제인들 마저 일찍 떠나버렸으므로, 그들을 짓누르는 엄청난 고독감은, 그들에게 더욱 심하게 임했다. 겨우 간접적으로, 천사 계층을 이용해서, 그들은 행성 밖의 어떤 존재든지 교류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서서히 약해졌으며, 영은 시들었고, 때로는 신앙마저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이상{以上}이, 자신 앞에 부닥친 과제들을 고려할 때마다, 이 두 고상한 혼의 당황스런 실제 모습이었다. 그들은 모두, 행성에서 받은 임무의 실행과 관련된 이행업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어쩌면 **네바돈**의 어떤 **물질 아들**도, **유란시아**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닥친 곤경 같은, 어려움과 절망적 과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지력과 **인내심**을 갖고 임했다라면, 언젠가는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특히 **이브**는 참을성이 너무 부족했는데; 그들은 오래 견디는 시험에 차분히 임하기를 싫어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또한 봤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는 자신들뿐 아니라 그 세계에 대단히 비참했다는 것이 판명됐다.

they addressed themselves to the all-important work of eliminating the defectives and degenerates from among the human strains, they were quite dismayed. They could see no way out of the dilemma, and they could not take counsel with their superiors on either Jerusalem or Edentia. Here they were, isolated and day by day confronted with some new and complicated tangle, some problem that seemed to be unsolvable.

75:1.2 (839.3) Under normal conditions the first work of a Planetary Adam and Eve would be the co-ordination and blending of the races. But on Urantia such a project seemed just about hopeless, for the races, while biologically fit, had never been purged of their retarded and defective strains.

75:1.3 (839.4) Adam and Eve found themselves on a sphere wholly unprepared for the proclam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a world groping about in abject spiritual darkness and cursed with confusion worse confounded by the miscarriage of the mission of the preceding administration. Mind and morals were at a low level, and instead of beginning the task of effecting religious unity, they must begin all anew the work of converting the inhabitants to the most simple forms of religious belief. Instead of finding one language ready for adoption, they were confronted by the world-wide confusion of hundreds upon hundreds of local dialects. No Adam of the planetary service was ever set down on a more difficult world; the obstacles seemed insuperable and the problems beyond creature solution.

75:1.4 (839.5) They were isolated, and the tremendous sense of loneliness which bore down upon them was all the more heightened by the early departur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Only indirectly, by means of the angelic orders, could they communicate with any being off the planet. Slowly their courage weakened, their spirits drooped, and sometimes their faith almost faltered.

75:1.5 (840.1) And this is the true picture of the consternation of these two noble souls as they pondered the tasks which confronted them. They were both keenly aware of the enormous undertaking involved in the execution of their planetary assignment.

75:1.6 (840.2) Probably no Material Sons of Nebadon were ever faced with such a difficult and seemingly hopeless task as confronted Adam and Eve in the sorry plight of Urantia. But they would have sometime met with success had they been more farseeing and patient. Both of them, especially Eve, were altogether too impatient; they were not willing to settle down to the long, long endurance test. They wanted to see some immediate results, and they did, but the results thus secured proved most disastrous both to

themselves and to their world.

2. 캘리개스차의 계략

캘리개스차가 **동산**을 자주 방문했고, **아담**과 **이브**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가 제안하는 타협안과 지름길처럼 보이는 모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모든 간소한 제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역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반역의 결과들이 그들 앞에 충분히 있었다. **아담**의 어린 자녀들조차, **달리개스차**의 제안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캘리개스차** 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도, **아담**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도록 설득하기는커녕, 어떤 개인에게도 그 자신의 뜻을 거슬러 영향을 줄 힘이 없었다.

캘리개스차가 여전히, **유란시아**의 유명무실한 **행성 왕자**, 즉 잘못 인도됐지만 그럼에도 지방 우주의 높은 **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가 돼서야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타락한 **왕자**는 집요하고 단호했다. 그는 곧 **아담**을 직접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교활하게 측면에서 **이브**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악한 자는, 한때 자신의 육체전환 참모 동역자들의 후손인, **놋족속** 집단의 상류 계층 중에서, 기민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를 적절하게 함정에 빠뜨렸다.

아담의 계획에 반대하거나, 그들의 행성 책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저지를 의도가 **이브**에게는 전혀 없었다. 훨씬 광범한 효과를 위해서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선호하는 여자들의 경향을 알았으므로, **멜기세덱**들은 떠나기 전에, 행성의 고립된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에 관해 **이브**에게 각별히 주의를 쏘고, 그녀의 반려자 곁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상호적인 이행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이거나 혼자 비밀을 지키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다. **이브**는 이 지침을 100년 이상 아주 면밀하게 지켜나갔고, **세라파타샤**라는 이름의 어느 **놋족속** 지도자의 방문을, 점점 더 사적{私的}이고 은밀하게 즐기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험스런 일도 그녀에게 발생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일이 너무나 서서히 자연스럽게 발전돼 갔으므로, 그녀도 눈치 채지 못했다.

동산 거주자들은 **에덴**의 초기 시절부터 **놋족속**과 접촉해왔었다.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참모진에서 태만한 요원들의 혼합된 이 후손들로부터, 많은 가치 있는 도움과 협조를 받았지만, **에덴**의 체제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완전한 작동불능과 최종 멸망을 맞이하게 됐다.

2. CALIGASTIA'S PLOT

75:2.1 (840.3) Caligastia paid frequent visits to the Garden and held many conferences with Adam and Eve, but they were adamant to all his suggestions of compromise and short-cut adventures. They had before them enough of the results of rebellion to produce effective immunity against all such insinuating proposals. Even the young offspring of Adam were uninfluenced by the overtures of Daligastia. And of course neither Caligastia nor his associate had power to influence any individual against his will, much less to persuade the children of Adam to do wrong.

75:2.2 (840.4) It must be remembered that Caligastia was still the titular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 misguided but nevertheless high Son of the local universe. He was not finally deposed until the time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75:2.3 (840.5) But the fallen Prince was persistent and determined. He soon gave up working on Adam and decided to try a wily flank attack on Eve. The evil one concluded that the only hope for success lay in the adroit employment of suitable persons belonging to the upper strata of the Nodite group, the descendants of his onetime corporeal-staff associates. And the plans were accordingly laid for entrapping the mother of the violet race.

75:2.4 (840.6) It was farthest from Eve's intention ever to do anything which would militate against Adam's plans or jeopardize their planetary trust. Knowing the tendency of woman to look upon immediate results rather than to plan farsightedly for more remote effects, the Melchizedeks, before departing, had especially enjoined Eve as to the peculiar dangers besetting their isolated position on the planet and had in particular warned her never to stray from the side of her mate, that is, to attempt no personal or secret methods of furthering their mutual undertakings. Eve had most scrupulously carried out these instructions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nd it did not occur to her that any danger would attach to the increasingly private and confidential visits she was enjoying with a certain Nodite leader named Serapatatia. The whole affair developed so gradually and naturally that she was taken unawares.

75:2.5 (840.7) The Garden dwellers had been in contact with the Nodites since the early days of Eden. From these mixed descendants of the defaulting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they had received much valuable help and co-operation, and through them the Edenic regime was now to meet its complete undoing and final overthrow.

3. 이브를 유혹함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세라파타사**가, **놏족속** 부족들의 서부 연맹, 즉 **시리아** 연맹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아담**은 이 세상에서 처음 100년을 방금 마침 후였다. **세라파타사**는 갈색 피부의 남자였는데, 먼 옛날 청인종의 뛰어난 여자 지성인 가운데 하나와 결혼한, 한때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의 영리한 후손이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 가문(家門)이 권력을 잡았고, 서쪽에 있는 **놏족속** 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라파타사는 **동산**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아담**의 대의명분이 정당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에 있는 **놏족속**의 지도자가 된 후에 곧,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일에 제휴할 뜻을 표명했다. 그의 백성 가운데 대다수가 이 계획표에 그와 함께 참여했고, **아담**은 모든 이웃 부족 중에서 가장 힘 있고 영리한 부족이, 세상의 개선을 위한 계획표에 헌신적 후원을 맹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건 직후에, **세라파타사**와 그의 신임 참모들이 **아담**과 **이브**의 집에서 환대 받았다.

세라파타사는 **아담**의 부관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는 아주 정직했고, 자신의 모든 활동에서 철저히 성실했으며; 교활한 **캘리개스타**의 부수적 도구로 자신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나중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윽고 **세라파타사**는 부족 간 관계에 관한 **에덴** 위원회의 부의장이 됐고, 먼 곳의 부족들을 참여시키는 업무에서, **동산**의 노선을 따라 좀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특히 **이브**와-- 많이 논의했고, 자신들의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계획을 의논했다. 하루는 그가 **이브**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문득 매우 효율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보라색 인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대기하고 있는 결핍된 부족들을 즉시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하리라는 것이었다. **세라파타사**는, 만약 가장 진취적이고 협동적인 인종인 **놏족속**이, 보라색 혈통에서 일부 기원된 어떤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 **동산**에 더 가깝게 묶어주는 강력한 끈을, 이 민족들이 성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동산**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서, 자기 아버지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사심 없이 했다.

3. THE TEMPTATION OF EVE

75:3.1 (841.1) Adam had just finished his first one hundred years on earth when Serapatatia, upon the death of his father, came to the leadership of the western or Syrian confederation of the Nodite tribes. Serapatatia was a brown-tinted man, a brilliant descendant of the onetime chief of the Dalamatia commission on health mated with one of the master female minds of the blue race of those distant days. All down through the ages this line had held authority and wielded a great influence among the western Nodite tribes.

75:3.2 (841.2) Serapatatia had made several visits to the Garden and had become deeply impressed with the righteousness of Adam's cause. And shortly after assuming the leadership of the Syrian Nodites, he announced his intention of establishing an affiliation with the work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The majority of his people joined him in this program, and Adam was cheered by the news that the most powerful and the most intelligent of all the neighboring tribes had swung over almost bodily to the support of the program for world improvement; it was decidedly heartening. And shortly after this great event, Serapatatia and his new staff were entertained by Adam and Eve in their own home.

75:3.3 (841.3) Serapatatia became one of the most able and efficient of all of Adam's lieutenants. He was entirely honest and thoroughly sincere in all of his activities; he was never conscious, even later on, that he was being used as a circumstantial tool of the wily Caligastia.

75:3.4 (841.4) Presently, Serapatatia became the associate chairman of the Edenic commission on tribal relations, and many plans were laid for the more vigorous prosecution of the work of winning the remote tribes to the cause of the Garden.

75:3.5 (841.5) He held many conferences with Adam and Eve — especially with Eve — and they talked over many plans for improving their methods. One day, during a talk with Eve, it occurred to Serapatatia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if, while awaiting the recruiting of large numbers of the violet race, something could be done in the meantime immediately to advance the needy waiting tribes. Serapatatia contended that, if the Nodites, as the most progressive and co-operative race, could have a leader born to them of part origin in the violet stock, it would constitute a powerful tie binding these peoples more closely to the Garden. And all of this was soberly and honestly considered to be for the good of the world since this child, to be reared and educated in the Garden, would exert a great influence for good over his father's people.

세라파타사가 아주 정직했고, 그가 제안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진지했음이 다시 강조돼야 하겠다. 그는 **캘리개스타**와 **달리개스타**의 손에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라파타사**는 **유란시아**의 혼란스런 사람들을 전 {全}세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보라색 인종을 축적하려는 계획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달성하기까지 수백 년 세월이 요구됐고, 그는 참을성이 부족했으므로 --자신의 생전에 뭔가 이뤄지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원했다. 그는, 세상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성취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아담**이 자꾸 용기 잃고 있음을, **이브**에게 확인시켰다.

5년이 넘도록, 이 계획이 비밀스럽게 무르익었다. 마침내 그들은, 인근의 우호적인 **노족속** 식민지에서 가장 현명하고 활동적 지도자인 **가노**와 **이브**가 비밀 회담을 갖는데 동의하게 되기까지 발전했다. **가노**는 **아담** 체제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이었으며; 사실 그는 **동산**과의 우호관계를 갖는 데 찬성하던, 이웃 **노족속**의 영적 지도자였다.

어느 가을 저녁 황혼 무렵에 몇 시간 동안, **아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치명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이브**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가노**를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그리고 그는 **행성 왕자**의 참모진에 속하는 먼 선조 가운데서, 우수한 신체와 뛰어난 지능을 이어 받은 훌륭한 표본이었다. **가노** 역시 **세라파타사**가 제시한 계획의 정당성을 철저히 믿었다. (**동산** 밖에서는 복수{複數}의 짝짓기가 통상적 관행이었다.)

달콤한 말, 열정, 및 대단한 개인적 설득력에 자극받은 **이브**는 그때 거기서, 여러 번 논의해 왔던 계획에 착수할 것과, 더 크고 더 널리_미치는 신{神}의 계획에,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녀 자신의 작은 책략을 덧붙이기로 동의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운명의 발걸음은 시작됐다. 그 일은 이뤄졌다.

4. 태만했음을 깨달음

행성에 있던 천상의 생명체가 동요했다. **아담**은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리고, **이브**에게 **동산**에서 자기 옆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즉:**세라파타사**의 계획사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신의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상의 개선을 가속시키기 위해 오랫동안_품어왔던 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됐다.

그리고 **물질 아들**과 **딸**이 달빛 어린 **동산**에 함께 있을 때, “**동산**의 소리”가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에덴**의 쌍에게, 그들이 **동산**의 서약을 어겼음;**멜기세덱**들의 지시사항

75:3.6 (841.6) It should again be emphasized that Serapatatia was altogether honest and wholly sincere in all that he proposed. He never once suspected that he was playing into the hands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Serapatatia was entirely loyal to the plan of building up a strong reserve of the violet race before attempting the world-wide upstepping of the confused peoples of Urantia. But this would require hundreds of years to consummate, and he was impatient; he wanted to see some immediate results — something in his own lifetime. He made it clear to Eve that Adam was oftentimes discouraged by the little that had been accomplished toward uplifting the world.

75:3.7 (841.7) For more than five years these plans were secretly matured. At last they had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Eve consented to have a secret conference with Cano, the most brilliant mind and active leader of the near-by colony of friendly Nodites. Cano was very sympathetic with the Adamic regime; in fact, he was the sincere spiritual leader of those neighboring Nodites who favore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Garden.

75:3.8 (842.1) The fateful meeting occurred during the twilight hours of the autumn evening, not far from the home of Adam. Eve had never before met the beautiful and enthusiastic Cano — and he was a magnificent specimen of the survival of the superior physique and outstanding intellect of his remote progenitors of the Prince's staff. And Cano also thoroughly believed in the righteousness of the Serapatatia project. (Outside of the Garden, multiple mating was a common practice.)

75:3.9 (842.2) Influenced by flattery, enthusiasm, and great personal persuasion, Eve then and there consented to embark upon the much-discussed enterprise, to add her own little scheme of world saving to the larger and more far-reaching divine plan. Before she quite realized what was transpiring, the fatal step had been taken. It was done.

4. THE REALIZATION OF DEFAULT

75:4.1 (842.3) The celestial life of the planet was astir. Adam recognized that something was wrong, and he asked Eve to come aside with him in the Garden. And now, for the first time, Adam heard the entire story of the long-nourished plan for accelerating world improvement by operating simultaneously in two directions: the prosecution of the divine plan concomitantly with the execution of the Serapatatia enterprise.

75:4.2 (842.4) And as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us communed in the moonlit Garden, “the voice in the Garden” reproved them for disobedience. And that voice was none other than my own announcement to the Edenic pair that they had

을 어겼음;그리고 우주 주권을 신뢰하겠다고 한 그들의 맹세를 이행하는 데 태만했음을, 바로 나 자신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브는 선(善)과 악(惡)의 실행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선이란 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고; 죄란 신의 뜻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악이란, 계획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기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주의 부조화와 행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동산**의 쌍은 선과 악을 결합시키려는 **캘리게스차**의 제의에 따르지 말라고, 수호천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훈계 받았다:“너희가 선과 악을 혼합하는 날, 너희는 반드시 그 영역의 필사가 될 것이며;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브는 비밀리에 만난 치명적인 날에, 자주 반복했던 이 경고를 **가노**에게 말했지만, **가노**는 그런 경고의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남녀가 선한 동기와 진실한 의도로 만나는 것은 악이 될 수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으며; 그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 자손의 몸에서 새롭게 살 것이며, 그 자손들은 성장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평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신의 계획을 변경시킨 이런 기획이, 전적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오직 세상의 복지를 위한 가장 고상한 동기로 실행됐더라도, 그것이 악을 성립시켰는데, 정당한 목적을 이루려고 잘못된 방식을 주장했기 때문이고, 옳은 방법, 즉 신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브가 **가노**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며, **이브**는 자신을 속인 자가 “인간사{人間事}에 관해서 새롭게 확대된 지식을 얻고, 인간 본성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아담**의 본성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약속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날 밤 **동산**에서 보라색 인종의 아버지 및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어머니 이브**가 태만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됐고, 그런 후에 당면한 상황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두 사람에게 해 줬다. 그들은 이 충고 가운데 어떤 것은 지켰고 어떤 것은 무시했다. 너희가 읽는 기록에서는 이 논의가, “**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적혀 있다.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이거나 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신들이 직접 친히 개입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후세{後世} 사람들의 풍습이었다.

transgressed the Garden covenant; that they had disobeyed the instructions of the Melchizedeks; that they had defaulted in the execution of their oaths of trust to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75:4.3 (842.5) Eve ha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practice of good and evil. Good is the carrying out of the divine plans; sin is a deliberate transgression of the divine will; evil is the misadaptation of plans and the maladjustment of techniques resulting in universe disharmony and planetary confusion.

75:4.4 (842.6) Every time the Garden pair had partaken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they had been warned by the archangel custodian to refrain from yielding to the suggestions of Caligastia to combine good and evil. They had been thus admonished: “In the day that you commingle good and evil, you shall surely become as the mortals of the realm; you shall surely die.”

75:4.5 (842.7) Eve had told Cano of this oft-repeated warning on the fateful occasion of their secret meeting, but Cano, not knowing the import or significance of such admonitions, had assured her that men and women with good motives and true intentions could do no evil; that she should surely not die but rather live anew in the person of their offspring, who would grow up to bless and stabilize the world.

75:4.6 (842.8) Even though this project of modifying the divine plan had been conceived and executed with entire sincerity and with only the highest motives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 world, it constituted evil because it represented the wrong way to achieve righteous ends, because it departed from the right way, the divine plan.

75:4.7 (843.1) True, Eve had found Cano pleasant to the eyes, and she realized all that her seducer promised by way of “new and increased knowledge of human affairs and quickene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s supplemental to the comprehension of the Adamic nature.”

75:4.8 (843.2) I talked to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violet race that night in the Garden as became my duty under the sorrowful circumstances. I listened fully to the recital of all that led up to the default of Mother Eve and gave both of them advice and counsel concerning the immediate situation. Some of this advice they followed; some they disregarded. This conference appears in your records as “the Lord God calling to Adam and Eve in the Garden and asking, “Where are you?”” It was the practice of later generations to attribute everything unusual and extraordinary, whether natural or spiritual, directly to the personal intervention of the Gods.

5. 태만의 영향

5. REPERCUSSIONS OF DEFAULT

이브가 꿈에서 깨어난 모습은 정말로 애처로웠다. **아담**은 모든 상황을 깨달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반려자{伴侶者}에 대하여 오직 연민과 동정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브가 과오를 저지른 다음 날, **아담**은 실패를 인식한 좌절감 속에서, **동산**의 서쪽 학교 책임자로 있는 **노족속**의 현명한 여자 **라오타**를 찾아갔고, 그는 계획적으로 **이브**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브**의 파멸을 공유하기 위해서 고의로 선택했다. 그는 초인적 애정으로 반려자를 사랑했고, **이브** 없이 혼자서 **유란시아**를 지켜야 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산** 거주자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자제할 수 없었으며; 인근에 있는 **노족속** 정착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에덴**의 문들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습격했고, 완전히 섬멸했다--남녀는 물론 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인**의 아버지, **가노** 역시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자, **세라파타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좌절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날 큰 강에 몸을 던졌다.

아담이 30일간 홀로 방랑하는 동안에, 그의 자녀들은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심판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아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혹된 부모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죄 없는 자녀에게도 종종 영향을 미친다. **아담**과 **이브**의 정직하고 고귀한 아들과 딸들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자신들에게 몰아닥친, 믿을 수 없는 비극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파묻혔다. 50년이 지나도, 비교적 나이든 자녀들은, 그 비극의 날들의 비탄과 슬픔, 특히 아버지가 집을 비운 30일 동안 체험했던 공포에서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때 괴로워하던 어머니는, 남편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30일이, **이브**에게는 몇 년처럼 긴, 슬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이 고상한 영혼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슬픔이라는 고난의 영향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후일에 그들이 겪게 되는 궁핍과 물질적 고난의 모습은, **이브**의 기억에 새겨진 그 끔찍한 나날, 그리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의 무시무시한 밤들에

75:5.1 (843.3) Eve's disillusionment was truly pathetic. Adam discerned the whole predicament and, while heartbroken and dejected, entertained only pity and sympathy for his erring mate.

75:5.2 (843.4) It was in the despair of the realization of failure that Adam, the day after Eve's misstep, sought out Laotta, the brilliant Nodite woman who was head of the western schools of the Garden, and with premeditation committed the folly of Eve. But do not misunderstand; Adam was not beguiled; he knew exactly what he was about; he deliberately chose to share the fate of Eve. He loved his mate with a supermortal affection, and the thought of the possibility of a lonely vigil on Urantia without her was more than he could endure.

75:5.3 (843.5) When they learned what had happened to Eve, the infuriated inhabitants of the Garden became unmanageable; they declared war on the near-by Nodite settlement. They swept out through the gates of Eden and down upon these unprepared people, utterly destroying them — not a man, woman, or child was spared. And Cano, the father of Cain yet unborn, also perished.

75:5.4 (843.6) Upon the realization of what had happened, Serapatatia was overcome with consternation and beside himself with fear and remorse. The next day he drowned himself in the great river.

75:5.5 (843.7) The children of Adam sought to comfort their distracted mother while their father wandered in solitude for thirty days. At the end of that time judgment asserted itself, and Adam returned to his home and began to plan for their future course of action.

75:5.6 (843.8) The consequences of the follies of misguided parents are so often shared by their innocent children. The upright and noble sons and daughters of Adam and Eve were overwhelmed by the inexplicable sorrow of the unbelievable tragedy which had been so suddenly and so ruthlessly thrust upon them. Not in fifty years did the older of these children recover from the sorrow and sadness of those tragic days, especially the terror of that period of thirty days during which their father was absent from home while their distracted mother was in complete ignorance of his whereabouts or fate.

75:5.7 (843.9) And those same thirty days were as long years of sorrow and suffering to Eve. Never did this noble soul fully recover from the effects of that excruciating period of mental suffering and spiritual sorrow. No feature of their subsequent deprivations and material hardships ever began to compare in Eve's memory with those terrible days and awful nights of loneliness and unbearable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브**는 **세라파타사**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나, 남편에 대해서는, 그가 슬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과오에 대한 대가{代價}로 세상에서 제거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아담**이 돌아왔을 때 **이브**가 느꼈던 충만한 기쁨은, 이후에 함께 겪은 어렵고 긴 세월의 고난을 지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브**가 직무에 태만한 후로 70일이 될 때까지, **아담**은 자신들의 위법의 본질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때 **멜기세덱** 관제인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와서 세상 직무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자신들이 실패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는데:**에덴** 근처에 있는 **놋족속** 정착민이 학살됐다는 소식이며, 북쪽 **세라파타사**의 고향 마을에 전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동산**으로 진군해 왔다. 이것이 바로, **아담족속**과 **놋족속** 사이에 있었던 길고 쓰라린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아담**과 그 추종자들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운 두 번째 **동산**으로 이주한 뒤로도, 이 적대감이 오래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그의 자손과 그 여자의 자손 사이에” 강렬하고 지속되는 불화가 있었다.

6.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놋족속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담**은 **멜기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에게 조언하기를 거절했으며,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어떤 진로의 결정이든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아담은 자신과 **이브**가 실패했음을 알았는데;**멜기세덱** 관제인들의 출현으로 그것을 알게 됐지만, 개인 신분이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자기 지도자를 따르기로 맹세한, 약 1,200명의 충성스런 추종자와 밤새워 논의했고, 이 나그네들은 다음 날 정오에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에덴**을 떠났다. **아담**은 전쟁을 싫어했고, 따라서 **놋족속**과 부딪치지 않도록, 첫 동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에덴의 행렬은 **동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에루셈**으로부터 스랍 운송선들이 도착했으므로 멈추게 됐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처음 알게 됐다. 운송선들이 멈춰있는 동안, 선택할 나이(곧 20세)에 도달한 자녀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노라티아덱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 가운데 3분의 2는 **에덴시아**로 가기로 선택했고, 약 3분의 1은 부모와

uncertainty. She learned of the rash act of Serapatatia and did not know whether her mate had in sorrow destroyed himself or had been removed from the world in retribution for her misstep. And when Adam returned, Eve experienced a satisfaction of joy and gratitude that never was effaced by their long and difficult life partnership of toiling service.

75:5.8 (844.1) Time passed, but Adam was not certain of the nature of their offense until seventy days after the default of Eve, when the Melchizedek receivers returned to Urantia and assumed jurisdiction over world affairs. And then he knew they had failed.

75:5.9 (844.2) But still more trouble was brewing: The news of the annihilation of the Nodite settlement near Eden was not slow in reaching the home tribes of Serapatatia to the north, and presently a great host was assembling to march on the Garden.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a long and bitter warfare between the Adamites and the Nodites, for these hostilities kept up long after Adam and his followers emigrated to the second garden in the Euphrates valley. There was intense and lasting “enmity between that man and the woman, between his seed and her seed.”

6. ADAM AND EVE LEAVE THE GARDEN

75:6.1 (844.3) When Adam learned that the Nodites were on the march, he sought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but they refused to advise him, only telling him to do as he thought best and promising their friendly co-operation, as far as possible, in any course he might decide upon. The Melchizedeks had been forbidden to interfere with the personal plans of Adam and Eve.

75:6.2 (844.4) Adam knew that he and Eve had failed; the presen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old him that, though he still knew nothing of their personal status or future fate. He held an all-night conference with some twelve hundred loyal followers who pledged themselves to follow their leader, and the next day at noon these pilgrims went forth from Eden in quest of new homes. Adam had no liking for war and accordingly elected to leave the first garden to the Nodites unopposed.

75:6.3 (844.5) The Edenic caravan was halted on the third day out from the Garden by the arrival of the seraphic transports from Jerusem. And for the first time Adam and Eve were informed of what was to become of their children. While the transports stood by, those children who had arrived at the age of choice (twenty years) were given the option of remaining on Urantia with their parents or of becoming wards of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Two thirds chose to go to Edentia; about one third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 선택할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는 모두 **에덴시아**로 옮겨졌다. 이 **물질 아들**과 **딸**이 자녀들과 이별하는 슬픈 장면을 보면서, 법을 어긴 자의 길이 고됨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이 자손들은 지금 **에덴시아**에 있지만;우리는 그 후에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슬프고 슬픈 행렬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겠는가! 그토록 고귀한 희망을 품고 한 세계에 와서 성대하게 영접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불명예스럽게 **에덴**을 떠나야 했으며, 게다가 새 거주지를 찾기도 전에, 자식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다니!

7. 아담과 이브의 강등

에덴의 행렬이 길을 멈춘 동안,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 본질에 대해 통고받았고, 또한 자신의 운명에 관한 충고도 들었다.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 판결은 이랬다:**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직무에 태만했으며;이 인간거주 세계 통치자로서 피신탁인 계명을 위반했다고 판결한다.

죄책감으로 침울해 있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우주 정부를 모욕한 죄”에 참여했다는 모든 혐의로부터는 면제된다는 **살빙톤** 심판관들의 판결문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반역죄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에덴의 부부는, 자신이 그 영역의 필사자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과;이 세상 인종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임을 내다보면서, 이후로는 **유란시아**의 남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오래 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교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의 계획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었다. 나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했는데, 나는 그들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 오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행성 사명의 이행에 태만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결과, 즉 징벌로써 그들이 필사자 육신의 신분으로 떨어질 것임을 말해줬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태만에 수반하는 결과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아들신분에 속하는 물질 계층의 불멸 상태에 대한 납득이 필수적이다.

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영**의 정신, 인력 회로와 지적{知的}으로 결합함으로써 불멸 상태를 유지한다. 정신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 자양물이 끊어지면, 피조물의 실존이 어떤 영적 수준에

elected to remain with their parents. All children of prechoice age were taken to Edentia. No one could have beheld the sorrowful parting of this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their children without realizing that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These offspring of Adam and Eve are now on Edentia; we do not know what disposition is to be made of them.

75.6.4 (844.6) It was a sad, sad caravan that prepared to journey on. Could anything have been more tragic! To have come to a world in such high hopes, to have been so auspiciously received, and then to go forth in disgrace from Eden, only to lose more than three fourths of their children even before finding a new abiding place!

7. DEGRADATION OF ADAM AND EVE

75.7.1 (845.1) It was while the Edenic caravan was halted that Adam and Eve were informed of the nature of their transgressions and advised concerning their fate. Gabriel appeared to pronounce judgment. And this was the verdict: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are adjudged in default; they have violated the covenant of their trusteeship as the rulers of this inhabited world.

75.7.2 (845.2) While downcast by the sense of guilt, Adam and Eve were greatly cheered by the announcement that their judges on Salvington had absolved them from all charges of standing in “contempt of the universe government.” They had not been held guilty of rebellion.

75.7.3 (845.3) The Edenic pair were informed that they had degraded themselves to the status of the mortals of the realm; that they must henceforth conduct themselves as man and woman of Urantia, looking to the future of the world races for their future.

75.7.4 (845.4) Long before Adam and Eve left Jerusem, their instructors had fully explained to them the consequences of any vital departure from the divine plans. I had personally and repeatedly warned them, both before and after they arrived on Urantia, that reduction to the status of mortal flesh would be the certain result, the sure penalty, which would unfailingly attend default in the execution of their planetary mission. But a comprehension of the immortality status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essential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sequences attendant upon the default of Adam and Eve.

75.7.5 (845.5) 1. Adam and Eve, like their fellows on Jerusem, maintained immortal status through intellectual association with the mind-gravity circuit of the Spirit. When this vital sustenance is broken by mental disjunction, then, regardless of the

있든지 상관없이, 불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육체가 소멸하게 되는 필사자의 신분은, **아담과 이브**가 지적 태만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가피한 결과였다.

2.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과 딸**은, 또한 이 세상의 필사 육체와 유사하게 인간화 돼버렸으므로, 이중{二重} 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더 의존하게 됐었는데, 하나는 그들의 신체적 본성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 과실에 저장돼 있는 초월 에너지로부터 획득됐다. 수호천사장은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말은 임무의 불이행은 결국 지위의 강등을 가져오리라는 사실과, 그들의 태만에 뒤따라서 이 에너지 원천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환기시켜왔다.

캘리개스차는 **아담과 이브**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주 정부에 대항하는 공개적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정말로 악{惡}이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모독하는 죄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창조주 아들**의 의로운 다스림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로 동조하지도 않았다.

8. 소위 인간의 타락

아담과 이브는, 높은 물질 아들신분의 지위에 서 낮은 필사적 사람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타락이 아니었다. **아담**의 태만이 즉각 영향을 미쳤음에도, 인류는 계속 향상돼왔다. **유란시아**에 보라색 인종을 수여하려는 신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필사 인종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미친 한정된 기여 덕분에 막대한 유익을 얻었다.

“사람의 타락”은 없었다.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화한 역사이며, **아담**의 증여는 그 이전의 생물학적 조건과 비교할 때, 세계의 민족들을 크게 개선했다. 더 우세한 **유란시아** 혈통들은 이제, **안돈족속**, **상익**, **놋족속**, 및 **아담족속**이라는 네 가지 독립된 근원으로부터 획득된 유전 요소들을 내포하게 됐다.

아담이 인류에게 임한 저주의 원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가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신격**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와 그의 반려자가 피조물의 신분으로 가장 확실하게 강등됐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유란시아** 문명을 많이 진보시켰다.

너희 세계에서 **아담**의 사명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성의 조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담**이 아름다운 반려자와 함께 **에루셈**에서 이 어둡고 혼돈스런 행성으로 옮겨왔을 때, 그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과제에 직면

spiritual level of creature existence, immortality status is lost. Mortal status followed by physical dissolution wa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intellectual default of Adam and Eve.

75:7.6 (845.6) 2.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of Urantia, being also personalized in the similitude of the mortal flesh of this world, were further dependent on the maintenance of a dual circulatory system, the one derived from their physical natures, the other from the superenergy stored in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lways had the archangel custodian admonished Adam and Eve that default of trust would culminate in degradation of status, and access to this source of energy was denied them subsequent to their default.

75:7.7 (845.7) Caligastia did succeed in trapping Adam and Eve, but he did not accomplish his purpose of leading them into open rebellion against the universe government. What they had done was indeed evil, but they were never guilty of contempt for truth, neither did they knowingly enlist in rebellion against the righteous rul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Creator Son.

8. THE SO-CALLED FALL OF MAN

75:8.1 (845.8) Adam and Eve did fall from their high estate of material sonship down to the lowly status of mortal man. But that was not the fall of man. The human race has been uplifted despite the immediate consequences of the Adamic default. Although the divine plan of giving the violet race to the Urantia peoples miscarried, the mortal races have profited enormously from the limited contribution which Adam and his descendants made to the Urantia races.

75:8.2 (846.1) There has been no “fall of ma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is one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the Adamic bestowal left the world peoples greatly improved over their previous biologic condition. The more superior stocks of Urantia now contain inheritance factors derived from as many as four separate sources: Andonite, Sangik, Nodite, and Adamic.

75:8.3 (846.2) Adam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cause of a curse on the human race. While he did fail in carrying forward the divine plan, while he did transgress his covenant with Deity, while he and his mate were most certainly degraded in creature status, notwithstanding all this, their contribution to the human race did much to advance civilization on Urantia.

75:8.4 (846.3) In estimating the results of the Adamic mission on your world, justice demands the recogn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planet. Adam was confronted with a well-nigh hopeless task when, with his beautiful mate, he was transported

했다. 그러나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동역자들의 조언에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결국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개인의 자유와 행성에서 행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활한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이브**는 물질 계층의 아들신분에 속하는 생명 원형질로 실험하도록 유도됐으며, 그 과정에서 **이브**는, 자신에게 위탁된 이 생명이, **생명 운반자들**이 원래 설계해서 그 당시에 혼합했던, 즉 **행성 왕자의** 참모진에 한때 배속됐던 번식하는 존재들의 생명 원형질과 그 전에 이미 혼합했던, 그 계층의 생명과 너무 조급하게 섞이도록 허락했다.

너희가 **낙원**으로 상승하는 과정 내내, 완전한 길, 완전하게 이르는 길,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길에서, 지름길이나 개인적인 창작, 또는 개선하는 다른 방책으로, 확립된 신의 계획을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성급하게 애써도, 너희는 결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네바돈** 전역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도, 이처럼 가슴 아픈 지혜의 실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진화하는 우주의 직무에서 일어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의 한 부분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우리 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완전성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 우리의 기원이 아니다.

이것이 기계적 우주였다면, **제1 근원 및 중심**이 또한 인격체가 아닌 단지 하나의 힘일 뿐이었다면, 모든 창조가 불변의 에너지 작용이라는 특징의 정확한 법칙에 지배되는 방대한 물리적 물질의 집합체라면, 비록 우주의 상태가 미완성이더라도, 완전성이 통용될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며; 마찰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완전함 및 불완전함에 속하는 진화하는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가 불일치와 오해의 가능성을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로써 우주에서 인격체가 있다는 사실과 그 활동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창조물이, 인격체의 통치를 받는 어떤 실존이라면, 너희는 인격이 생존하고, 진보하며, 성취할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인격의 성장, 체험, 및 모험을 확신할 수 있다. 우주가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진취적이니, 얼마나 영광스런 우주일가!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from Jerusem to this dark and confused planet. But had they been guided by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and *had they been more patient*, they would have eventually met with success. But Eve listened to the insidious propaganda of personal liberty and planetary freedom of action. She was led to experiment with the life plasm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n that she allowed this life trust to become prematurely commingled with that of the then mixed order of the original design of the Life Carriers which had been previously combined with that of the reproducing beings once attached to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75:8.5 (846.4) Never, in all your ascent to Paradise, will you gain anything by impatiently attempting to circumvent the established and divine plan by short cuts, personal inventions, or other devices for improving on the way of perfection, to perfection, and for eternal perfection.

75:8.6 (846.5) All in all, there probably never was a more disheartening miscarriage of wisdom on any planet in all Nebadon. But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se missteps occur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We are a part of a gigantic creation, and it is not strange that everything does not work in perfection; our universe was not created in perfection. Perfection is our eternal goal, not our origin.

75:8.7 (846.6) If this were a mechanistic universe, i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were only a force and not also a personality, if all creation were a vast aggregation of physical matter dominated by precise laws characterized by unvarying energy actions, then might perfection obtain, even despite the incompleteness of universe status. There would be no disagreement; there would be no friction. But in our evolving universe of relative perfection and imperfection we rejoice that disagreement and misunderstanding are possible, for thereby is evidenced the fact and the act of personality in the universe. And if our creation is an existence dominated by personality, then can you be assured of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ity survival, advancement, and achievement; we can be confident of personality growth, experience, and adventure. What a glorious universe, in that it is personal and progressive, not merely mechanical or even passively perfect!

75:8.8 (846.7)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 76편. 두 번째 동산

⇨ 075

유란시아 책

07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76편
두 번째 동산

섹션

소개

1. 에덴주민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2. 가인과 아벨
3. 메소포타미아 생활
4. 보라색 인종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6. 아담과 이브의 생존

PAPER 76
THE SECOND GARDE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denites Enter Mesopotamia
2. Cain and Abel
3. Life in Mesopotamia
4. The Violet Race
5. Death of Adam and Eve
6. Survival of Adam and Eve

소개

아담이 첫 동산을 **노족속**에게 저항 없이 넘겨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은 서쪽으로 갈 수 없었는데, **에덴족속**에게는 해양 모험에 적합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북부 **노족속**이 이미 **에덴**으로 진군해왔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으며; 그 지역 언덕에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들끓었다. 유일하게 열린 길은 동쪽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당시에 살기 좋은 목초지를 향해 **이브** 동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도 훗날 동쪽으로 여행하여, 유역에 있는 **아담족속**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과 합류했다.

가인과 **산사**는 둘 다, **아담** 이주민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오타**는 딸을 해산하다가 죽었으며; **이브**도 무척 산고(産苦)를 겪었지만, 강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브**는, **라오타**의 아이인 **산사**를 자기 품에 받아들여서, **가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역량을 지닌 여자로 성장했다. **산사**는 북방에 있는 청색인의 족장 **사르간**의 아내가 됐고, 그 당시 청색인의 진보에 기여했다.

INTRODUCTION

76:0.1 (847.1) WHEN Adam elected to leave the first garden to the Nodites unopposed, he and his followers could not go west, for the Edenites had no boats suitable for such a marine adventure. They could not go north; the northern Nodites were already on the march toward Eden. They feared to go south; the hills of that region were infested with hostile tribes. The only way open was to the east, and so they journeyed eastward toward the then pleasant regions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many of those who were left behind later journeyed eastward to join the Adamites in their new valley home.

76:0.2 (847.2) Cain and Sansa were both born before the Adamic caravan had reached its destination between the rivers in Mesopotamia. Laotta, the mother of Sansa, perished at the birth of her daughter; Eve suffered much but survived, owing to superior strength. Eve took Sansa, the child of Laotta, to her bosom, and she was reared along with Cain. Sansa grew up to be a woman of great ability. She became the wife of Sargan, the chief of the northern blue races, and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he blue men of those times.

1. 에덴 주민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아담의 행렬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1년 걸렸다. 홍수가 났으므로, 물줄기의 서쪽 평원에 천막을 치고 거의 6주간 남아 있었으며, 그 후에 두 번째 동산이 될 강들 사이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동산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동쪽 산으로 도망갔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그가 원하던 전 지역이 비어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 새로운 지역에서, **아담**과 그를 돕는 자들은 새 집을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 중심지를 열심히 건설했다.

이 부지(敷地)는, **아담**이 알기로는, **반**과 **아마돈**이 제안한 **동산**을 위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위임된 위원회가 원래 선정한 세 곳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에 두 강 자체가 훌륭한 천연적 방어 역할을 했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서로 근접했으므로, 남쪽에, 강들 사이의 지역을 보호하도록, 56마일에 달하는 방어벽을 세우기만 하면 됐다.

새 **에덴**에 정착한 후에는 원시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땅이 저주받았음은 완전히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한 번 멋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아담**족속은 냉담한 자연과 필사자 실존의 여러 모순에 직면한 가운데, 개간되지 않은 토양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고, 삶의 현실에 대처해야만 했다. 그들은, 첫 동산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준비돼 있었던 반면, 두 번째 동산은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2. 가인과 아벨

가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못돼서 **아벨**이 태어났는데,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였다. **아벨**은 열두 살 됐을 때 목동이 되기로 선택했으며;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기로 이미 선택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획득한 물품 중에서 사제(司祭)에게 헌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목동은 자신의 동물 떼 중에서, 농부는 들판의 열매 중에서 가져가곤 했으며; 이런 관습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예물을 제사장에게 바쳤다. 두 소년은 자기 직업이 더 좋다는 논쟁을 여러 번 벌였고, **아벨**은 자신의 동물 제물이 우대받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렸다. **가인**은 첫 **에덴**의 전통으로 들판의 열매를 선호했다는 선례(先例)를

1. THE EDENITES ENTER MESOPOTAMIA

76:1.1 (847.3) It required almost a full year for the caravan of Adam to reach the Euphrates River. Finding it in flood tide, they remained camped on the plains west of the stream almost six weeks before they made their way across to the land between the rivers which was to become the second garden.

76:1.2 (847.4) When word had reached the dwellers in the land of the second garden that the king and high priest of the Garden of Eden was marching on them, they had fled in haste to the eastern mountains. Adam found all of the desired territory vacated when he arrived. And here in this new location Adam and his helpers set themselves to work to build new homes and establish a new center of culture and religion.

76:1.3 (847.5) This site was known to Adam as one of the three original selections of the committee assigned to choose possible locations for the Garden proposed by Van and Amadon. The two rivers themselves were a good natural defense in those days, and a short way north of the second garden the Euphrates and Tigris came close together so that a defense wall extending fifty-six miles could be built for the protection of the territory to the south and between the rivers.

76:1.4 (847.6) After getting settled in the new Eden, it became necessary to adopt crude methods of living; it seemed entirely true that the ground had been cursed. Nature was once again taking its course. Now were the Adamites compelled to wrest a living from unprepared soil and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life in the face of the natural hostilities and incompatibilities of mortal existence. They found the first garden partially prepared for them, but the second had to be created by the labor of their own hands and in the “sweat of their faces.”

2. CAIN AND ABEL

76:2.1 (848.1) Less than two years after Cain's birth, Abel was born, the first child of Adam and Eve to be born in the second garden. When Abel grew up to the age of twelve years, he elected to be a herder; Cain had chosen to follow agriculture.

76:2.2 (848.2) Now, in those days it was customary to make offerings to the priesthood of the things at hand. Herders would bring of their flocks, farmers of the fruits of the field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ustom, Cain and Abel likewise made periodic offerings to the priests. The two boys had many times argued about the relative merits of their vocations, and Abel was not slow to note that preference was shown for his animal sacrifices. In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형이 당황할 때마다 조롱했다.

첫 **에덴** 시절에, 동물로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없애려고 **아담**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덴**에서 종교 생활을 조직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아담**은, 건축, 국방, 농업 등의 일과 관련된 수많은 세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침체됐으므로, **아담**은 첫 동산에서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노족속** 출신 사람들에게 경배와 교육의 조직을 일임했으며; 집례{執禮}하는 **노족속** 사제들은, 무척 짧은 기간에 **아담**_이전{以前} 시기의 기준과 통치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두 소년은 한 번도 서로 잘 지내지 못했으며, 제물에 관한 이 문제는 그들 사이에 미움이 커지도록 더욱 부채질했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둘 다의 아들임을 알았고, **가인**에게 **아담**이 그의 아버지가 아님을 상기시키곤 했다. 아버지가 청색인 및 홍색인과 섞이고, 나중에 **안돈** 혈통 원주민 혈통과 섞인 **노족속**에 속했으므로, **가인**은 순수한 보라색 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인**의 선천적 호전성{好戰性}과 함께, 그로 하여금 동생을 점점 더 증오하게 만들었다.

소년들이 각각 열여덟 살과 스무 살이 됐을 때, 그들 사이의 긴장상태는 결국 끝장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벨**이 호전적인 형을 무척 화나게 하자, **가인**은 분노가 폭발해서 그에게 달려들어 죽였다.

아벨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환경과 교육이 성품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시켜 준다. **아벨**은 이상적 유전형질을 가졌고, 전통이 그의 모든 성품 밑바닥에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의 영향이, 이 훌륭한 기질을 실질적으로 상쇄해버렸다. **아벨**은 특히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환경에 크게 영향 받았다. 그가 스물다섯 살이나 서른 살까지 살았다면, 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것인데; 그의 훌륭한 유전형질이 그때 결국 드러나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한 유전자의 성품 결함을 극복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 실제로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반면, 나쁜 환경은, 적어도 생애에서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유전형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다. 좋은 사회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전형질을 최대로 발휘시키기에 필수적인 토양과 상황이다.

아벨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담**과 **이브**는 그가 죽었음을 알아차렸다. **가인**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빨리 찾아온 대가{代價}였으며, 그들은 그가 스스로 동산을 떠나기로 결정하

vain did Cain appeal to the traditions of the first Eden, to the former preference for the fruits of the fields. But this Abel would not allow, and he taunted his older brother in his discomfiture.

76:2.3 (848.3) In the days of the first Eden, Adam had indeed sought to discourage the offering of animal sacrifice so that Cain had a justifiable precedent for his contentions. It was, however, difficult to organize the religious life of the second Eden. Adam was burdened with a thousand and one details associated with the work of building, defense, and agriculture. Being much depressed spiritually, he intrusted the organization of worship and education to those of Nodite extraction who had served in these capacities in the first garden; and in even so short a time the officiating Nodite priests were reverting to the standards and rulings of pre-Adamic times.

76:2.4 (848.4) The two boys never got along well, and this matter of sacrifices further contributed to the growing hatred between them. Abel knew he was the son of both Adam and Eve and never failed to impress upon Cain that Adam was not his father. Cain was not pure violet as his father was of the Nodite race later admixed with the blue and the red man and with the aboriginal Andonic stock. And all of this, with Cain's natural bellicose inheritance, caused him to nourish an ever-increasing hatred for his younger brother.

76:2.5 (848.5) The boys were respectively eighteen and twenty years of age when the tension between them was finally resolved, one day, when Abel's taunts so infuriated his bellicose brother that Cain turned upon him in wrath and slew him.

76:2.6 (848.6) The observation of Abel's conduct establishes the value of environment and education as factors in character development. Abel had an ideal inheritance, and heredity lies at the bottom of all character; but the influence of an inferior environment virtually neutralized this magnificent inheritance. Abel, especially during his younger years,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unfavorable surroundings. He would have become an entirely different person had he lived to be twenty-five or thirty; his superb inheritance would then have shown itself. While a good environment cannot contribute much toward really overcoming the character handicaps of a base heredity, a bad environment can very effectively spoil an excellent inheritance, at least during the younger years of life. Good social environment and proper education are indispensable soil and atmosphere for getting the most out of a good inheritance.

76:2.7 (849.1) The death of Abel became known to his parents when his dogs brought the flocks home without their master. To Adam and Eve, Cain was fast becoming the grim reminder of their folly, and they encouraged him in his decision to leave the garden.

도록 권했다.

가인은 그런 색다른 점에서 태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눈치 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부족 표시도 지니지 않았으므로, 우연히 만나는 첫 이웃 부족원에게 죽임 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공포와 약간의 후회 때문에 회개하게 됐다. **가인**에게는 **조울사**가 내주한 적이 없었으며, 그는 항상 가정의 규율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경멸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머니 **이브**를 찾아가서 영적 도움과 인도를 부탁했고, 정직하게 신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조울사**가 그에게 내주하게 됐다. 그리고 내주하면서 밖을 내다보는 이 **조울사**가, **가인**에게 명백하게 탁월한 장점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담**의 부족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됐다.

그리하여 **가인**은 두 번째 **에덴**의 동쪽, **놋**의 땅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서 아버지 쪽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세라파타사**의 예언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가인**은 평생 **놋족속**과 **아담족속**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가인**은 먼 친척 **레모나**와 결혼했고, 첫 아들 **에녹**은 **놋족속 엘람주민**의 족장이 됐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엘람주민**과 **아담족속** 사이에 평화가 계속됐다.

3. 메소포타미아 생활

두 번째 동산에서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태만의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떠난 자기 아이들뿐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이전(以前) 고향을 무척 그리워했다. 이 훌륭한 부부가 그 영역의 보통 육체 상태로 전략해 있음을 지켜보기란,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하락된 지위를 품위와 인내심으로 견뎠다.

아담은 지혜롭게도 자녀와 동역자들에게, 시민사회 경영, 교육 방법, 그리고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예지력이 없었다면 그가 죽은 뒤에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아담**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민족의 직무 수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자녀와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광스러웠던 나날을 점차 잊어 가고 있음을 그들은 인식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대다수가 **에덴**의 화려함을 잊어버린 것은 다행이었으며; 그들은 비교적 불행한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불만을 품는 것 같지 않았다.

76:2.8 (849.2) Cain's life in Mesopotamia had not been exactly happy since he was in such a peculiar way symbolic of the default. It was not that his associates were unkind to him, but he had not been unaware of their subconscious resentment of his presence. But Cain knew that, since he bore no tribal mark, he would be killed by the first neighboring tribesmen who might chance to meet him. Fear, and some remorse, led him to repent. Cain had never been indwelt by an Adjuster, had always been defiant of the family discipline and disdainful of his father's religion. But he now went to Eve, his mother, and asked for spiritual help and guidance, and when he honestly sought divine assistance, an Adjuster indwelt him. And this Adjuster, dwelling within and looking out, gave Cain a distinct advantage of superiority which classed him with the greatly feared tribe of Adam.

76:2.9 (849.3) And so Cain departed for the land of Nod, east of the second Eden. He became a great leader among one group of his father's people and did, to a certain degree, fulfill the predictions of Serapatatia, for he did promote peace between this division of the Nodites and the Adamites throughout his lifetime. Cain married Remona, his distant cousin, and their first son, Enoch, became the head of the Elamite Nodites. And for hundreds of years the Elamites and the Adamites continued to be at peace.

3. LIFE IN MESOPOTAMIA

76:3.1 (849.4) As time passed in the second garden, the consequences of default became increasingly apparent. Adam and Eve greatly missed their former home of beauty and tranquillity as well as their children who had been deported to Edentia. It was indeed pathetic to observe this magnificent couple reduced to the status of the common flesh of the realm; but they bore their diminished estate with grace and fortitude.

76:3.2 (849.5) Adam wisely spent most of the time training his children and their associates in civil administration, educational methods, and religious devotions. Had it not been for this foresight, pandemonium would have broken loose upon his death. As it was, the death of Adam made little differenc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his people. But long before Adam and Eve passed away, they recognized that their children and followers had gradually learned to forget the days of their glory in Eden. And it was better for the majority of their followers that they did forget the grandeur of Eden; they were not so likely to experience undue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ss fortunate environment.

아담족속의 집권자는 첫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으로 이어졌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아담선**(곧 **아담**의 아들 **아담**)은 두 번째 **에덴**의 북쪽에서 보라색 인종의 2차 중심지를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선**도 훌륭한 지도자이자 행정관이 됐으며; 그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브선**은 **아담**만큼 오래 살지 못했으므로, 그의 맏아들 **안사드**가 **아담족속** 부족들의 우두머리로서 **아담**의 후계자가 됐다.

종교 통치자, 즉 사제계층은 **셀**으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나서 살아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었다. 그는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지 129년째 해에 태어났다. **셀**은 아버지 민족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됐고, 두 번째 동산에서 결성된 새 사제계층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경배 체계를 설립했고, 손자 **케난**은 가깝거나 먼 주변 부족들에게 대외 선교 봉사를 시작했다.

셀족속 제사장은 3중 업무를 맡았는데, 종교, 건강, 및 교육을 포함했다. 이 계층의 제사장들은 종교 예식을 거행하고, 의사와 위생{衛生} 감독관으로서 일하고, 동산의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도록 훈련 받았다.

아담의 이주민은, 첫 동산에서 수백 가지 식물과 곡물의 씨앗과 뿌리를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가져왔으며; 또한 그들은 다양한 짐승 떼와 모든 종류의 길들인 동물 가운데 일부도 데려왔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능가하는 큰 이점{利點}을 갖게 됐다. 그들은 원래의 **동산**에 있었던 이전{以前}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첫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은 항상, 과일, 곡류, 견과류 등에 의존해서 살아왔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풀잎과 채소류를 먹었다. 육식{肉食}이 두 번째 동산에 일찍부터 소개됐지만, **아담**과 **이브**는 정규 식사의 일부분으로 고기를 먹는 일이 결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담선**과 **이브선** 그리고 첫 동산에서 태어난 첫째 세대 아이들까지도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다.

아담족속은 문명 성취와 지적 발달에서 주변의 민족들보다 대단히 뛰어났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어냈고, 다른 면에서는 현대적 예술, 과학, 문학 등의 선구적 기초를 많이 정립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잡은 이 땅에서, 글쓰기, 금속가공, 도기 제조, 직조 등의 기술을 유지했고,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그 보다 나은 것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보라색 민족의 가정생활은, 그들이 살던 시대

76:3.3 (849.6) The civil rulers of the Adamites were derived hereditarily from the sons of the first garden. Adam's first son, Adamson (Adam ben Adam), founded a secondary center of the violet race to the north of the second Eden. Adam's second son, Eveson, became a masterly leader and administrator; he was the great helper of his father. Eveson lived not quite so long as Adam, and his eldest son, Jansad, became the successor of Adam as the head of the Adamite tribes.

76:3.4 (849.7) The religious rulers, or priesthood, originated with Seth, the eldest surviving son of Adam and Eve born in the second garden. He was born one hundred and twenty-nine years after Adam's arrival on Urantia. Seth became absorbed in the work of improving the spiritual status of his father's people, becoming the head of the new priesthood of the second garden. His son, Enos, founded the new order of worship, and his grandson, Kenan, instituted the foreign missionary service to the surrounding tribes, near and far.

76:3.5 (850.1) The Sethite priesthood was a threefold undertaking, embracing religion, health, and education. The priests of this order were trained to officiate at religious ceremonies, to serve as physicians and sanitary inspectors, and to act as teachers in the schools of the garden.

76:3.6 (850.2) Adam's caravan had carried the seeds and bulbs of hundreds of plants and cereals of the first garden with them to the land between the rivers; they also had brought along extensive herds and some of all the domesticated animals. Because of this they possessed great advantages over the surrounding tribes. They enjoyed many of the benefits of the previous culture of the original Garden.

76:3.7 (850.3) Up to the time of leaving the first garden, Adam and his family had always subsisted on fruits, cereals, and nuts. On the way to Mesopotamia they had, for the first time, partaken of herbs and vegetables. The eating of meat was early introduced into the second garden, but Adam and Eve never partook of flesh as a part of their regular diet. Neither did Adamson nor Eveson nor the other children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first garden become flesh eaters.

76:3.8 (850.4) The Adamites greatly excelled the surrounding peoples in cultural achievement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They produced the third alphabet and otherwise laid the foundations for much that was the forerunner of modern art, science, and literature. Here in the lands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they maintained the arts of writing, metalworking, pottery making, and weaving and produced a type of architecture that was not excelled in thousands of years.

76:3.9 (850.5) The home life of the violet peoples was,

와 시기에 맞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공예술, 그리고 동물 사육 등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셀** 자손으로서 세 가지 임무인: 제사장, 치료자, 및 선생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셀족속** 제사장을 생각할 때, 고상하고 고양된 정신을 지닌, 위생과 종교 교사인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였던 그들을, 후세의 부족이나 인접한 국가에 존재했던, 타락하고 상업적인 사제계층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격**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종교 개념은 성숙돼 있었고 대체로 정확했으며, 그들의 위생 설비도 그 시대로서는 탁월했고, 그들의 교육 방식은 그 후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4. 보라색 인종

아담과 **이브**는, 사람들 가운데 보라색 인종, 즉 **유란시아**에 9번째로 출현한 인간 종족의 창시자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보라색 민족들은 하얀 피부와 --황색, 적색, 및 갈색의-- 밝은 머리카락 색깔이 특징이었다.

이브는 출산할 때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뿐만 아니라 초기의 진화 인종들도 그랬다. 오직 진화 인종이 **노족속**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족속**과 합동함으로써 생긴 혼혈 인종들만,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형제들처럼, 이중 영양 보충으로 에너지를 받았는데, 음식과 빛에 의존해서 살아갔고, **유란시아**에는 계시되지 않은 어떤 초물질 에너지로 보충됐다. 그들의 **유란시아** 자손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빛을 순환시키는 재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다. 그들은 한 가지 순환만 지녔는데, 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 유형의 순환이었다. 그들은 비록 오래 살았지만 반드시 죽도록 고안됐는데, 그럼에도 길었던 수명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인간 수준에 가까워졌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첫 세대 자녀는, 동물의 고기를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온전히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았다. 첫 세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낙농식품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관습을 계속 따랐다. 그들이 후에 결합한 남쪽 부족 가운데 다수 역시 고기를 먹지 않았다. 채식하는 이 부족들 대부분은 나중에 동쪽으로 이주했고, **인도**의 민족들과 섞여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아담과 **이브**의 신체적 및 영적 선견력은 모두 오늘날의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은 훨씬 민감했으며, 그들은 중도자, 천사 무리, **멜기세덱**, 그리고 타락한 **캘리개스차 왕자**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캘리개스차**는 자신의 고귀한 후임자와 협상하기 위해서 여러 번

for their day and age, ideal. Children were subjected to courses of training in agriculture, craftsmanship, and animal husbandry or else were educated to perform the threefold duty of a Sethite: to be priest, physician, and teacher.

76:3.10 (850.6) And when thinking of the Sethite priesthood, do not confuse those high-minded and noble teachers of health and religion, those true educators, with the debased and commercial priesthoods of the later tribes and surrounding nations. Their religious concepts of Deity and the universe were advanced and more or less accurate, their health provisions were, for their time, excellent, and their methods of education have never since been surpassed.

4. THE VIOLET RACE

76:4.1 (850.7) Adam and Eve were the founders of the violet race of men, the ninth human race to appear on Urantia. Adam and his offspring had blue eyes, and the violet peoples were characterized by fair complexions and light hair color — yellow, red, and brown.

76:4.2 (850.8) Eve did not suffer pain in childbirth; neither did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nly the mixed races produced by the union of evolutionary man with the Nodites and later with the Adamites suffered the severe pang of childbirth.

76:4.3 (851.1) Adam and Eve, like their brethren on Jerusem, were energized by dual nutrition, subsisting on both food and light, supplemented by certain superphysical energies unrevealed on Urantia. Their Urantia offspring did not inherit the parental endowment of energy intake and light circulation. They had a single circulation, the human type of blood sustenance. They were designedly mortal though long-lived, albeit longevity gravitated toward the human norm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76:4.4 (851.2) Adam and Eve and their first generation of children did not use the flesh of animals for food. They subsisted wholly upon “the fruits of the trees.” After the first generation all of the descendants of Adam began to partake of dairy products, but many of them continued to follow a nonflesh diet. Many of the southern tribes with whom they later united were also nonflesh eaters. Later on, most of these vegetarian tribes migrated to the east and survived as now admixed in the peoples of India.

76:4.5 (851.3) Both the physical and spiritual visions of Adam and Eve were far superior to those of the present-day peoples. Their special senses were much more acute, and they were able to see the midwayers and the angelic hosts, the Melchizedeks, and the fallen Prince Caligastia,

왔었다. 그들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역량을, 직무에 태만한 후에도 100년 이상 유지했다. 이 특수 감각은, 그들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게 됐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담의 자녀에게는 대개 **조울사**가 해주했는데, 이는 그들 모두 확실하게 생존 자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이 자손은, 진화 자녀와는 달리, 두려움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았다.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은 두려움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인종의 신체 향상을 위한 계획이 초기에 실패함에 따라서, 너희 조상이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아주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물질 아들과 그 자녀의 육체 세포는, 행성에서 진화한 원주민 존재의 세포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했다. 토착 인종의 육체 세포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영역의 미세하고 극미한 유기체와 비슷하다. 이 사실은, **유란시아** 사람들이 왜 많은 신체 질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토록 과학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너희 인종들이 **아담**의 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너희는 질병 저항력이 훨씬 강하게 됐을 것이다.

아담은 **유프라테스** 지역에 두 번째 동산을 세우게 된 후,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남기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브**가 인종 개량 12인 위원회의 의장이 됐고,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가장 뛰어난 유형의 **유란시아** 여자 1,682명을 뽑았으며, 이 여자들은 **아담**의 생명 원형질로 임신했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1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어른으로 성장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1,570명의 탁월한 남녀가 더해지는 혜택을 입었다. 비록 이 어머니 후보자들이 주위의 모든 부족에서 뽑혔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인종을 대표했지만, 다수는 **노족속**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족에서 뽑혔고, 그들은 막강한 **안드족속** 인종의 옛 조였다. 이 자녀들은 각자 자기 어머니의 부족 환경에서 태어나고 양육됐다.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두 번째 **에덴**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들의 뉘우침이 받아들여졌고, 그들 자신은 이 세상 필사자의 죽음을 맛보도록 운명이 정해진 반면,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生存者}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히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감동적으로 선언한, 부활과 명예회복에 대한 이 복음을

who several times came to confer with his noble successor. They retained the ability to see these celestial beings for over one hundred years after the default. These special senses were not so acutely present in their children and tended to diminish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76:4.6 (851.4) The Adamic children were usually Adjuster indwelt since they all possessed undoubted survival capacity. These superior offspring were not so subject to fear as the children of evolution. So much of fear persists in the present-day races of Urantia because your ancestors received so little of Adam's life plasm, owing to the early miscarriage of the plans for racial physical uplift.

76:4.7 (851.5) The body cells of the Material Sons and their progeny are far more resistant to disease than are those of the evolutionary beings indigenous to the planet. The body cells of the native races are akin to the living disease-producing microscopic and ultramicroscopic organisms of the realm. These facts explain why the Urantia peoples must do so much by way of scientific effort to withstand so many physical disorders. You would be far more disease resistant if your races carried more of the Adamic life.

76:4.8 (851.6) After becoming established in the second garden on the Euphrates, Adam elected to leave behind as much of his life plasm as possible to benefit the world after his death. Accordingly, Eve was made the head of a commission of twelve on race improvement, and before Adam died this commission had selected 1,682 of the highest type of women on Urantia, and these women were impregnated with the Adamic life plasm. Their children all grew up to maturity except 112, so that the world, in this way, was benefited by the addition of 1,570 superior men and women. Though these candidate mothers were selected from all the surrounding tribes and represented most of the races on earth, the majority were chosen from the highest strains of the Nodites, and they constituted the early beginnings of the mighty Andite race. These children were born and reared in the tribal surroundings of their respective mothers.

5. DEATH OF ADAM AND EVE

76:5.1 (851.7) Not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Eden, Adam and Eve were duly informed that their repentance was acceptable, and that, while they were doomed to suffer the fate of the mortals of their world, they should certainly become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ranks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Urantia. They fully believed this gospel of resurrection and rehabilitation which the Melchizedeks so touchingly proclaimed to

온전하게 믿었다. 그들의 위반은 판단 착오였으며,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죄는 아니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 시민이었을 때에는 **사고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았고, **유란시아**의 첫 동산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사고 조율사**는 그들에게 내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사 상태로 전락되고 얼마 후에, 자신 안에 새로운 현존을 의식하게 됐으며, 그들은 인간 신분으로도 진지하게 뉘우치면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조율사**의 내주에 대한 이 인식은, **아담**과 **이브**에게 남은 생애 동안 큰 기쁨이 됐으며;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질 아들로서는 실패했음을 알았지만, 우주에서 상승하는 아들로서, **낙원**으로 가는 생애가 아직 자신에게 열려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

아담은 자신이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접리 시대의 부활이 일어난 것을 알았고, 자신과 반려자는 아마 다음 아들신분 계층의 도래에 연관해서 다시 인격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우주의 주권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으며; 다음 번 **아들**로는 **아보날** 계층이 오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미가엘**로부터 받은 유일한 개인적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항상 위안이 됐지만, 일부는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메시지는 우정과 위로를 표현하는 다른 말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태만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다. 나는 내 **아버지** 뜻에 항상 충성하려는 너희 심정의 열망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역에서 하급{下級} **아들**들이 그 전에 너희를 부르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내려갈 때 너희가 필사 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크나큰 신비였다. 그들은 이 메시지 속에 특별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숨어있음을 납득할 수 있었고, 그런 가능성은 그들에게 크게 용기를 불러 일으켰지만,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나타나는 날과 관련해서 일어날 부활의 때까지, 자신들이 휴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에덴**의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항상 선포했으며, 자신들이 크게 실수하고 슬픔을 겪은 세계가 어찌면, 이 우주 통치자가 **낙원** 중역 **아들**로서 활동하려고 선택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적어도 간절한 소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사실로 이뤄지기에는 너무 굉장한 일처럼 보였지만, **아담**은, 다행으로_분열된 **유란시아**가, 결국 **사타니아** 체계에서 가장 운 좋은 세계, 즉 전체 **네바돈**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행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다.

아담은 530년 동안 살았으며; 노령{老齡}이라

them. Their transgression had been an error of judgment and not the sin of conscious and deliberate rebellion.

76:5.2 (852.1) Adam and Eve did not, as citizens of Jerusem, have Thought Adjusters, nor were they Adjuster indwelt when they functioned on Urantia in the first garden. But shortly after their reduction to mortal status they became conscious of a new presence within them and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 status coupled with sincere repentance had made it possible for Adjusters to indwell them. It was this knowledge of being Adjuster indwelt that greatly heartened Adam and Eve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they knew that they had failed as Material Sons of Satania, but they also knew that the Paradise career was still open to them as ascending sons of the universe.

76:5.3 (852.2) Adam knew about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which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his arrival on the planet, and he believed that he and his companion would probably be repersonalized in connection with the advent of the next order of sonship. He did not know that Michael, the sovereign of this universe, was so soon to appear on Urantia; he expected that the next Son to arrive would be of the Avonal order. Even so, it was always a comfort to Adam and Eve, as well as something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to ponder the only personal message they ever received from Michael. This message, among other expressions of friendship and comfort, said: “I have given consideration to the circumstances of your default, I have remembered the desire of your hearts ever to be loyal to my Father’s will, and you will be called from the embrace of mortal slumber when I come to Urantia if the subordinate Sons of my realm do not send for you before that time.”

76:5.4 (852.3) And this was a great mystery to Adam and Eve. They could comprehend the veiled promise of a possible special resurrection in this message, and such a possibility greatly cheered them, but they could not grasp the meaning of the intimation that they might rest until the time of a resurrection associated with Michael’s personal appearance on Urantia. And so the Edenic pair always proclaimed that a Son of God would sometime come, and they communicated to their loved ones the belief, at least the longing hope, that the world of their blunders and sorrows might possibly be the realm whereon the ruler of this universe would elect to function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It seemed too good to be true, but Adam did entertain the thought that strife-torn Urantia might, after all, turn out to be the most fortunate world in the system of Satania, the envied planet of all Nebadon.

76:5.5 (852.4) Adam lived for 530 years; he died of

고 청할만한 원인으로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 장치가 낡아버린 것이었으며; 붕괴 과정이 고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앞지르게 됐고, 필연적인 끝이 왔다. **이브**는 약해진 심장으로 인해서 **아담**보다 19년 먼저 죽었다. 그들은, 그 정착지의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졌던, 신성한 예배 장소인 성전 중앙에, 함께 매장됐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이 독실한 남자나 여자를 경배 장소의 마루 밑에 매장하는 풍습의 기원이었다.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멜기세덱**들의 지휘 하에 계속 유지됐지만, 진화 인종들과 직접 육체로 접촉하는 일은 단절돼 왔다. 먼 과거에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들이 도착한 때부터, **반**과 **아마돈** 시대를 거쳐서 **아담**과 **이브**가 도래할 때까지, 우주 정부의 물리적 대표자들이 이 행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5만년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돼 온 이 체제는,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 영적 분야에서, 천사 협조자는 **사고 조울사**와 협력하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 둘 다 영웅적으로 계속 투쟁해 왔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도래하기 전에는, 멀리_미치는 세계 복지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 이 세상의 필사자들에게 공표되지 않았는데, **마키벤타**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인내심, 및 권위를 갖고, 불운한 **유란시아**를 더욱 향상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기초(基礎)를 놓았다.

하지만 **유란시아**에 불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 행성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행성이기도 했다. 선조의 실책과 초기에 왔던 세계 통치자들의 실수 때문에, 행성이 그토록 혼란스런 절망 상태에 던져지고, 악과 죄로 인해 한결 더 형편없이 된 바로 이런 어둠의 배경이, **네바돈 미가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스런 인격을 드러내는 무대로서 이 세계를 선택했다면, **유란시아인**은 이 모든 것을 이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유란시아**가 그 영커버린 직무를 바로잡는 데 **창조주 아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며; 그보다는, **유란시아**에서 죄와 악은, **낙원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창조주 아들**이 드러내는 데 좀 더 강하게 대조되는 배경을 제공했다.

6. 아담과 이브의 생존

아담과 **이브**는, 언젠가 죽음에서 깨어나, 맨션 세계들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멜기세덱**들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간직한 채 필사 휴식에 들어갔는데, 그 맨션 세계들은,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의 물질 육체 속

what might be termed old age. His physical mechanism simply wore out; the process of disintegration gradually gained on the process of repair, and the inevitable end came. Eve had died nineteen years previously of a weakened heart. They were both buried in the center of the temple of divine service which had been built in accordance with their plans soon after the wall of the colony had been completed.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practice of burying noted and pious men and women under the floors of the places of worship.

76:5.6 (852.5) The supermaterial government of Urantia, under the direction of the Melchizedeks, continued, but direct physical contact with the evolutionary races had been severed. From the distant days of the arrival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down through the times of Van and Amadon to the arrival of Adam and Eve, physical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e government had been stationed on the planet. But with the Adamic default this regime, extending over a period of more than four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came to an end. In the spiritual spheres, angelic helpers continued to struggle in conjunc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s, both working heroically for the salvage of the individual; but no comprehensive plan for far-reaching world welfare was promulgated to the mortals of earth until the arrival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times of Abraham, who, with the power, patience, and authority of a Son of God, did lay the foundations for the further uplift and spiritual rehabilitation of unfortunate Urantia.

76:5.7 (853.1) Misfortune has not, however, been the sole lot of Urantia; this planet has also been the most fortunate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Urantians should count it all gain if the blunders of their ancestors and the mistakes of their early world rulers so plunged the planet into such a hopeless state of confusion, all the more confounded by evil and sin, that this very background of darkness should so appeal to Michael of Nebadon that he selected this world as the arena wherein to reveal the loving personality of the Father in heaven. It is not that Urantia needed a Creator Son to set its tangled affairs in order; it is rather that the evil and sin on Urantia afforded the Creator Son a more striking background against which to reveal the matchless love, mercy, and patience of the Paradise Father.

6. SURVIVAL OF ADAM AND EVE

76:6.1 (853.2) Adam and Eve went to their mortal rest with strong faith in the promises made to them by the Melchizedeks that they would sometime awake from the sleep of death to resume life on the mansion worlds, worlds all so familiar to them

에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척 친숙한 곳이었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가 겪는 무의식 수면{睡眠}의 망각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셋째 날, 경건한 장례식을 치른 후 둘째 날에, **에덴시아**의 대리 **지고자**들이 승인하고, **미가엘**을 대행하는 **살빙톤**의 **합동 향존자**가 동의한 **라나휘지**의 명령을 **가브리엘**이 받았는데, 이 명령은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태만했을 때 현저하게 생존한 자들에 대한 특별 출석점호를 지시했다. 그리고 **유란시아** 계열에서 26_번에 해당하는, 이 특별 부활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 동산을 체험한 1,316명의 동역자와 함께,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에 있는 부활실{復活室}에서 다시 인격화되고 다시 조립됐다. **아담**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충성한 많은 다른 혼이 이미 전환돼 있었으며, 뒤이어, 잠자던 생존자와 자격 있는 살아있는 상승자들 양쪽에 대해서 섭리시대 판결이 내려졌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세계들을 빠르게 통과했는데, 자신의 원래 행성에서 다시 한 번 거주민이 됐지만, 이번에는 우주 인격체 가운데 다룬 계층의 일원으로서 오게 됐다. 그들은 영구 시민으로서--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루셈**을 떠났으며; 상승한 시민으로서--곧 사람의 아들로서-- 돌아왔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즉시 배속됐는데, 나중에는 **유란시아**의 현재 자문-통제 기관을 구성하는 24조연자 가운데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 이것은 시련, 비극, 및 승리의 이야기, 즉 의도는 좋았지만 속임수에 넘어간 **물질 아들**과 **딸**에게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승리한 이야기이며, 의심할 바 없이 마침내, 그들의 세계 및 반역으로 버림받고 악에 시달리던 거주민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문명 발달을 가속시켰고 생물학적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위대한 문명을 남겼지만, **아담**의 유산마저 일찍부터 희석되고 종국에 침몰하고 마는 운명에 직면해서는, 그토록 진보된 문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문명을 이룩하는 것은 민족이며; 문명이 민족을 만들지 않는다.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in the days preceding their mission in the material flesh of the violet race on Urantia.

76:6.2 (853.3) They did not long rest in the oblivion of the unconscious sleep of the mortals of the realm. On the third day after Adam's death, the second following his reverent burial, the orders of Lanaforge, sustained by the acting Most High of Edentia and concurred in by the Union of Days on Salvington, acting for Michael, were placed in Gabriel's hands, directing the special roll call of the distinguished survivors of the Adamic default on Urant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mandate of special resurrection, number twenty-six of the Urantia series, Adam and Eve were repersonalized and reassembled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together with 1,316 of their associates in the experience of the first garden. Many other loyal souls had already been translated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which was attended by a dispensational adjudication of both the sleeping survivors and of the living qualified ascenders.

76:6.3 (853.4) Adam and Eve quickly passed through the worlds of progressive ascension until they attained citizenship on Jerusem, once again to be residents of the planet of their origin but this time as members of a different order of universe personalities. They left Jerusem as permanent citizens — Sons of God; they returned as ascendant citizens — sons of man. They were immediately attached to the Urantia service on the system capital, later being assigned membership among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who constitute the present advisory-control body of Urantia.

76:6.4 (854.1) And thus ends the story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a story of trial, tragedy, and triumph, at least personal triumph for your well-meaning but deluded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undoubtedly, in the end, a story of ultimate triumph for their world and its rebellion-tossed and evil-harassed inhabitants. When all is summed up, Adam and Eve made a mighty contribution to the speedy civilization and accelerated biologic progress of the human race. They left a great culture on earth, but it was not possible for such an advanced civilization to survive in the face of the early dilution and the eventual submergence of the Adamic inheritance. It is the people who make a civilization; civilization does not make the people.

76:6.5 (852.1)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77편. 중도 피조물

⇨ 076

유란시아 책

07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7편
중도 피조물

섹션

소개

1. 1차 중도자
2. 노족속 인종
3. 바벨탑
4. 노족속의 문명 중심지
5. 아담선과 라타
6. 2차 중도자
7. 반역에 가담한 중도자
8. 연합한 중도자
9. 유란시아의 영구 시민

소개

네바돈에서 인간거주 세계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독특한 존재 집단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천사 계층 중간쯤에 생명이 작용하는 수준에서 존재하며; 그래서 그들을 중도{中道}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시간세계에서 우연히 출현한 것 같지만, 매우 광범하게 퍼져있고, 돕는 자로서 매우 유익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복합 행성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계층으로 받아들이지 오래다.

유란시아에서는 뚜렷이 다른 두 계층의 중도자가 활동하는데: 1차 단체, 즉 선임{先任} 단체는 먼 옛날 **달라마시아** 시대에 생겼고, 2차 단체, 즉 그 후에 생긴 집단의 기원은, **아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 1차 중도자

1차 중도자는, **유란시아**에서 물질계와 영계의 독특한 상호결합으로 탄생했다. 우리는 다른 세계 및 다른 체계에 있는 비슷한 피조물 실존에

PAPER 77

THE MIDWAY CREATUR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rimary Midwayers
2. The Nodite Race
3. The Tower of Babel
4. Nodite Centers of Civilization
5. Adamson and Ratta
6. The Secondary Midwayers
7. The Rebel Midwayers
8. The United Midwayers
9. The Permanent Citizens of Urantia

INTRODUCTION

77:0.1 (855.1)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of Nebadon harbor one or more groups of unique beings existing on a life-functioning level about midway between those of the mortals of the realms and of the angelic orders; hence are they called *midway* creatures. They appear to be an accident of time, but they occur so widely and are so valuable as helpers that we have all long since accepted them as one of the essential orders of our combined planetary ministry.

77:0.2 (855.2) On Urantia there function two distinct orders of midwayers: the primary or senior corps, who came into being back in the days of Dalamatia, and the secondary or younger group, whose origin dates from the times of Adam.

1. THE PRIMARY MIDWAYERS

77:1.1 (855.3) The primary midwayers have their genesis in a unique interassociation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on Urantia. We know of the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으로 생겨났다.

진화 행성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잇따른 증여는, 그 영역의 영적 질서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고, 때로는 한 행성에서 영적 매개체와 물질적 매개체의 상호 연합 작용을 변경시켜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캘리개스타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의 신분이 바로 그런 독특한 상호연합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예루셈**의 상승한 모론티아 시민으로서, 번식하는 특권이 없는 초물질 피조물이었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은, 하강하는 행성 사역자로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남녀 구별이 있는 물질 피조물이었다. 이 1백 명이 초물질 수준에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육체전환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 요원이, (성교(性交)가 아니라) 초물질적으로 접촉함으로써, 1차 중도자 중에서 첫_태생이 출현했다.

필사(必死) 수준과 천사(天使) 수준 사이의 존재인 이 계층의 피조물이, **왕자** 본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즉각 발견됐으며, 그에 따라서, 육체전환 참모진 각 쌍은, 비슷한 존재를 산출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첫 집단의 중도 피조물 50명이 탄생했다.

이런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후에, **행성 왕자**는 중도자를 제한 없이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이 계획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행됐으며, 따라서 5만 명의 원래 단체가 존재하게 됐다.

각 중도자를 산출하는 데는 6개월이 소요됐고, 각 쌍으로부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 자손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능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시험을 계속해도 항상 완전하게 실패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이 피조물은 **왕자**의 경영에서 정보 단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멀리까지 광범하게 활동했는데, 세계의 인종을 연구하고 관찰했으며, 행성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왕자**와 그의 참모진에게 값을 해야 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했다.

이 체제는 행성에 반역이 일어나던 비극의 날까지 계속됐는데, 1차 중도자 가운데 5분의 4를 조

existence of similar creatures on other worlds and in other systems, but they originated by dissimilar techniques.

77:1.2 (855.4) It is well always to bear in mind that the successive bestowals of the Sons of God on an evolving planet produce marked changes in the spiritual economy of the realm and sometimes so modify the workings of the interassociation of spiritual and material agencies on a planet as to create situations indeed difficult of understanding. The status of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illustrates just such a unique interassociation: As ascendant morontia citizens of Jerusem they were supermaterial creatures without reproductive prerogatives. As descendant planetary ministers on Urantia they were material sex creatures capable of procreating material offspring (as some of them later did). What we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is how these one hundred could function in the parental role on a supermaterial level, but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A supermaterial (nonsexual) liaison of a male and a female member of the corporeal staff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the first-born of the primary midwayers.

77:1.3 (855.5) It was immediately discovered that a creature of this order, midway between the mortal and angelic levels, would be of great service in carrying on the affairs of the Prince's headquarters, and each couple of the corporeal staff was accordingly granted permission to produce a similar being. This effort resulted in the first group of fifty midway creatures.

77:1.4 (855.6) After a year of observing the work of this unique group, the Planetary Prince authorized the reproduction of midwayers without restriction. This plan was carried out as long as the power to create continued, and the original corps of 50,000 was accordingly brought into being.

77:1.5 (856.1) A period of one-half year intervened between the production of each midwayer, and when one thousand such beings had been born to each couple, no more were ever forthcoming. And there is no explanation available as to why this power was exhausted upon the appearance of the one thousandth offspring. No amount of further experimentation ever resulted in anything but failure.

77:1.6 (856.2) These creatures constituted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Prince's administration. They ranged far and wide, studying and observing the world races and rendering other invaluable services to the Prince and his staff in the work of influencing human society remote from the planetary headquarters.

77:1.7 (856.3) This regime continued until the tragic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which ensnared a

금 넘는 숫자가 미혹됐다. 충성스런 단체는,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아담** 시대까지 명목상 지도자인 **반**의 수하에서 활동했다.

2. 낯족속 인종

이것이 **유란시아** 중도 피조물의 기원, 본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 1차와 2차의 -- 두 계층 간 유사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으며, 행성에 반역이 있던 시대에서 **아담** 시대까지, **캘리개스타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중에서 반역에 가담한 요원들의 후손 계통을 더듬어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둘째 계층의 중도 피조물을 낳은 조상 가운데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유형형질 계통이었다.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를 지닌 요원들은, 그들의 특별한 계층이 **안돈** 부족의 선택된 혈통의 품질과 결합한, 통합 품질을 지닌 자손을 낳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해서였다. **생명 운반자**들은, **왕자**의 참모진의 공동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첫 세대 자손의 결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필사자를 계획했다.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계층의 행성 피조물을 예상해서 계획을 입안해 냈었고,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선생-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런 존재들은, 일반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됐다. 그러나 이런 계획사업이 거의 완전하게 실패했으므로, **유란시아**가 얼마나 자비로운 지도력과 비길 데 없는 문화를 가진 어떤 귀족사회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육체전환 참모진이 나중에 번식했을 때는, 이미 반역이 일어난 후였고, 그들이 그 체계의 생명 흐름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미 끊어진 뒤였기 때문이다.

반역 이후 시대에 색다른 일이 **유란시아**에 많이 일어났다. 위대한 문명--곧 **달라마시아**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었다. "**네페림**(곧 **낯족속**)"이 그 시대에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결과로 그들이 탄생했으며, 이 자녀들은, '옛날의 용사들', 즉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 참모진과 그들의 초기 자손은, 도저히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그런 아득한 시절에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이들을 그렇게 여겼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키조차 과장됐다. 그 후로, 이것이 거의 보편적인 민간설화의 기원이 됐는데,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고, 영웅적인 옛 인종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설은, 두 번째 동산에서 후대에 나타난 **아담족속**의 인종 혼합과 더욱 혼동됐다.

little over four fifths of the primary midwayers. The loyal corps entered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functioning under the titular leadership of Van until the days of Adam.

2. THE NODITE RACE

77:2.1 (856.4) While this is the narra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 of the midway creatures of Urantia, the kinship between the two orders — primary and secondary — makes it necessary to interrupt the story of the primary midwayers at this point in order to follow out the line of descent from the rebel members of the corporeal staff of Prince Caligastia from the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to the times of Adam. It was this line of inheritance which, in the early days of the second garden, furnished one half of the ancestry for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 creatures.

77:2.2 (856.5) The physic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had been constituted sex creatures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plan of procreating offspring embodying the combined qualities of their special order united with those of the selected stock of the Andon tribes, and all of this was in anticipation of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Adam. The Life Carriers had planned a new type of mortal embracing the union of the conjoint offspring of the Prince's staff with the first-generation offspring of Adam and Eve. They had thus projected a plan envisioning a new order of planetary creatures whom they hoped would become the teacher-rulers of human society. Such beings were designed for social sovereignty, not civil sovereignty. But since this project almost completely miscarried, we shall never know what an aristocracy of benign leadership and matchless culture Urantia was thus deprived of. For when the corporeal staff later reproduced, it was subsequent to the rebellion and after they had been deprived of their connection with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77:2.3 (856.6) The postrebellion era on Urantia witnessed many unusual happenings. A great civilization — the culture of Dalamatia — was going to pieces. "The Nephilim (Nodites) were on earth in those days, and when these sons of the gods went in 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to them, their children were the 'mighty men of old,' the 'men of renown.'" While hardly "sons of the gods," the staff and their early descendants were so regarded by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hose distant days; even their stature came to be magnified by tradition. This, then, is the origin of the well-nigh universal folk tale of the gods who came down to earth and there with the daughters of men begot an ancient race of heroes. And all this legend became further confused with the race mixtures of the later appearing Adamites in the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이 **안돈**의 인간 종족들로부터 생식세포 원형질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성교로 번식하게 되면, 그들의 후손은 모두 다른 **안돈족속** 부모들의 자손과 닮았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를 추종했던 60명의 반역한 참모가 실제로 성교로 번식에 들어갔을 때, 그 자녀는 **안돈족속**은 물론 **상익** 민족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이 입증됐다. 예기치 못했던 이런 탁월성은, 육체와 지능의 품질뿐 아니라, 영적 수용력의 특징이기도 했다.

노족속의 첫 세대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의 특징은, **안돈**의 세포 원형질의 유전 인자의 배열과 화학적 구성요소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로부터 생겨났다. 이런 변화는,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_유지 회로가 참모진 요원의 육체 속에 현존함으로 인해 발생됐다. 이 생명 회로는, 특화된 **유란시아** 원형(原型)의 염색체로 하여금, 규정된 **네바돈** 생명체 형태화 중에서, 표준화된 **사타니아** 특화 원형과 비슷하게 다시 조직하도록 만들었다. 체계 생명 흐름의 작용으로 생식세포 원형질을 변질시키는 이런 기법은,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X광선을 이용해서 식물과 동물의 세포 원형질을 변형시키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노족속** 민족들은 어떤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부터 발생했는데, 이 변경은, **아바론** 외과 의사들이 **안돈족속** 기증자들의 몸에서 육체전환 참모진 요원들의 몸으로 옮긴 생명 원형질 속에서 일어났다.

세포 원형질을 기증한 100명의 **안돈족속**은 그 대신 생명나무를 보완하는 유기체를 소유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의 흐름이 그들의 육체에도 마찬가지로 투입됐다는 사실이 생각날 것이다. 변경된 **안돈족속** 가운데 참모진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던 44명 역시 자기들끼리 짝졌고, **노족속** 민족 가운데 더 나은 혈통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변경된 **안돈족속** 세포 원형질을 지닌 104명의 개인을 포함하는 이 두 집단은, **유란시아**에 여덟째 인종으로 나타난 **노족속**의 조상을 형성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에서 인간 생명체의 이런 새로운 특색은, 예상치 못했던 발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행성을 생명체_변경 세계로 활용하려는 원래 계획을 능가하는 또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

순수한_핏줄의 **노족속**은 훌륭한 인종이었지만, 점차 이 세상의 진화 인간과 혼합됐고,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퇴보가 발생됐다. 반역이 있는 지 1

second garden.

77:2.4 (857.1) Since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carried germ plasm of the Andonic human strains, it would naturally be expected that, if they engaged in sexual reproduction, their progeny would altogether resemble the offspring of other Andonite parents. But when the sixty rebels of the staff, the followers of Nod, actually engaged in sexual reproduction, their children proved to be far superior in almost every way to both the Andonite and the Sangik peoples. This unexpected excellence characterized not only physical and intellectual qualities but also spiritual capacities.

77:2.5 (857.2) These mutant traits appearing in the first Nodite generation resulted from certain changes which had been wrought in the configuration and in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the inheritance factors of the Andonic germ plasm. These changes were caused by the presence in the bodies of the staff members of the powerful life-maintenance circuits of the Satania system. These life circuits caused the chromosomes of the specialized Urantia pattern to reorganize more after the patterns of the standardized Satania specialization of the ordained Nebadon life manifestation. The technique of this germ plasm metamorphosis by the action of the system life currents is not unlike those procedures whereby Urantia scientists modify the germ plasm of plants and animals by the use of X rays.

77:2.6 (857.3) Thus did the Nodite peoples arise out of certain peculiar and unexpected modifications occurring in the life plasm which had been transferred from the bodies of the Andonite contributors to those of the corporeal staff members by the Avalon surgeons.

77:2.7 (857.4) It will be recalled that the one hundred Andonite germ plasm contributors were in turn made possessors of the organic complement of the tree of life so that the Satania life currents likewise invested their bodies. The forty-four modified Andonites who followed the staff into rebellion also mated among themselves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better strains of the Nodite people.

77:2.8 (857.5) These two groups, embracing 104 individuals who carried the modified Andonite germ plasm, constitute the ancestry of the Nodites, the eighth race to appear on Urantia. And this new feature of human life on Urantia represents another phase of the outworking of the original plan of utilizing this planet as a life-modification world, except that this was one of the unforeseen developments.

77:2.9 (857.6) The pure-line Nodites were a magnificent race, but they gradually mingled with the evolutionary peoples of earth, and before long

만 년이 지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의 수명보다 약간 긴 정도까지 쇠퇴했다.

노족 가운데 후대 **수메르인** 후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점토층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각각의 왕의 통치 기간이 25년 내지 30년에서, 13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이 더 긴 것은, 초기 **노족** 통치자들이(**왕자**의 참모진의 직계 후손) 후대의 후계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며, 그 왕조를 **달라마시아**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확대해석해보려고 애썼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 계산에서 달{月}과 해{年}를 혼돈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성서**의 계보에서, 그리고 **중국**{中國}의 초기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8일로 돼있는 한 달 또는 계절이, 후대에 소개된, 350일이 조금 넘는 1년과 혼돈을 일으킨 것이, 그런 긴 인간 수명 전통을 만들게 했다. 900“년” 이상 살았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70년 조금 못되는 기간에 해당했으며, 그런 연수{年數}는 매우 긴 기간으로 간주됐는데, “인생은 70”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타나게 됐다.

28일을 한 달로 치는 시간 계산이, **아담** 시대 이후로 먼 훗날까지 오래 유지됐다. 그러나 약 7천 년 전에 **이집트인**이 달력을 다시 만들게 됐을 때,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했는데, 1년을 365일로 소개했다.

3. 바벨탑

달라마시아가 물에 밀에 가라앉은 후에, **노족** 속은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자신의 인종 및 문화 본부로 **딜문**이라는 새 도시를 설립했다. 그리고 **노**가 죽은 후 약 5만 년이 지나자, **왕자**의 참모진의 자손이 너무 많아져서, **딜문**이라는 그들의 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땅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이미 멀리 퍼져서 국경 지역에 있는 **안돈족** 및 **상익** 부족과 그들이 서로 결혼하기에 이르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인종적 통일성을 유지시킬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따라서 부족들의 협의회가 소집됐고, **노**의 후손인 **배브롯**의 계획이 심사숙고 끝에 승인됐다.

배브롯은, 당시에 자신들이 차지한 영토 중앙에 종족을 영화롭게 할 만한 거창한 성전을 세우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세상 사람이 전혀 본

great deterioration had occurred. Ten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they had lost ground to the point where their average length of life was little more than that of the evolutionary races.

77:2.10 (857.7) When archaeologists dig up the clay-tablet records of the later-day Sumerian descendants of the Nodites, they discover lists of Sumerian kings running back for several thousand years; and as these records go further back, the reigns of the individual kings lengthen from around twenty-five or thirty years up to one hundred and fifty years and more. This lengthening of the reigns of these older kings signifies that some of the early Nodite rulers (immediate descendants of the Prince's staff) did live longer than their later-day successors and also indicates an effort to stretch the dynasties back to Dalamatia.

77:2.11 (857.8) The records of such long-lived individuals are also due to the confusion of months and years as time periods. This may also be observed in the Biblical genealogy of Abraham and in the early records of the Chinese. The confusion of the twenty-eight-day month, or season, with the later introduced year of more than three hundred and fifty days is responsible for the traditions of such long human lives. There are records of a man who lived over nine hundred “years.” This period represents not quite seventy years, and such lives were regarded for ages as very long, “threescore years and ten” as such a life span was later designated.

77:2.12 (858.1) The reckoning of time by the twenty-eight-day month persisted long after the days of Adam. But when the Egyptians undertook to reform the calendar, about seven thousand years ago, they did it with great accuracy, introducing the year of 365 days.

3. THE TOWER OF BABEL

77:3.1 (858.2) After the submergence of Dalamatia the Nodites moved north and east, presently founding the new city of Dilmun as their racial and cultural headquarters. And about fifty thousand years after the death of Nod, when the offspring of the Prince's staff had become too numerous to find subsistence in the lands immediately surrounding their new city of Dilmun, and after they had reached out to intermarry with the Andonite and Sangik tribes adjoining their borders, it occurred to their leaders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to preserve their racial unity. Accordingly a council of the tribes was called, and after much deliberation the plan of Bablot, a descendant of Nod, was endorsed.

77:3.2 (858.3) Bablot proposed to erect a pretentious temple of racial glorification at the center of their then occupied territory. This temple was to have a

적이 없는 모양의 탑을 성전에 세우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그 탑을, 한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을 기리는 대단한 기념비가 되게 하려 했다. 이 기념비를 **딜문**에 세우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더러는 첫 수도였던 **달라마시아**가 물에 잠겼다는 전승을 기억하고, 그런 거대 구조물은 바다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브롯은, 이 새 건물이 **노족속** 문화와 문명의 미래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그의 조언이 마침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시작됐다. 새로운 그 도시는, 탑 설계자이며 건축자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배브롯**으로 명명(命名)됐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블롯**이라고 알려졌고, 결국 **바벨**이 됐다.

그러나 **노족속**은 이 이행업무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 감정이 나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건축 계획 또는 그 건물이 완성된 후의 용도에 대해서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다. 4년 반 동안 작업이 진행된 후에, 탑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너무 심각해져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양식을 나르던 자들이 분쟁 소식을 퍼뜨렸고, 부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건물 부지(敷地)로 모여들었다.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제안됐다.

1.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큰 무리는, **노족속**의 역사와 인종적 우수성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탑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든 후세 자손의 경탄을 불러일으킬만한, 거대하고 당당한 구조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2.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무리는, **딜문**의 문화를 기념할 수 있도록 탑을 설계하려고 했다. 그들은 **배브롯**이, 상업, 예술, 및 제조업의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3. 가장 숫자가 적고 소수파인 무리는, **캘리개스차** 반역에 참여했던 선조의 어리석음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탑을 세우자고 고집했다. 그들은, 탑이 오직 모든 존재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과, 새 도시를 세우는 모든 목적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곧 주변에 있는 야만인을 위한 문화 및 종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집단의 의견은 즉각 부결됐다. 다수파는 반역의 책임이 조상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그런 인종적 오명(汚名)에 분개했다. 세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두 가지를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을 싫어하는 종교인들은 남쪽에 있는 자신의 본거지로 피했지만, 그 동료들은 거의 소멸될 때까지 싸웠다.

tower the like of which the world had never seen. It was to be a monumental memorial to their passing greatness. There were many who wished to have this monument erected in Dilmun, but others contended that such a great structure should be placed a safe distance from the dangers of the sea, remembering the traditions of the engulfment of their first capital, Dalamatia.

77:3.3 (858.4) Bablot planned that the new buildings should become the nucleus of the future center of the Nodite culture and civilization. His counsel finally prevailed, and construction was started in accordance with his plans. The new city was to be named *Bablot* after the architect and builder of the tower. This location later became known as Bablot and eventually as Babel.

77:3.4 (858.5) But the Nodites were still somewhat divided in sentiment as to the plans and purposes of this undertaking. Neither were their leaders altogether agreed concerning either construction plans or usage of the buildings after they should be completed. After four and one-half years of work a great dispute arose about the object and motive for the erection of the tower. The contentions became so bitter that all work stopped. The food carriers spread the news of the dissension, and large numbers of the tribes began to forgather at the building site. Three differing views were propounded as to the purpose of building the tower:

77:3.5 (858.6) 1. The largest group, almost one half, desired to see the tower built as a memorial of Nodite history and racial superiority. They thought it ought to be a great and imposing structure which would challenge the admiration of all future generations.

77:3.6 (858.7) 2. The next largest faction wanted the tower designed to commemorate the Dilmun culture. They foresaw that Bablot would become a great center of commerce, art, and manufacture.

77:3.7 (859.1) 3. The smallest and minority contingent held that the erection of the tower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making atonement for the folly of their progenitors in participating in the Caligastia rebellion. They maintained that the tower should be devoted to th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that the whole purpose of the new city should be to take the place of Dalamatia — to function as the cultural and religious center for the surrounding barbarians.

77:3.8 (859.2) The religious group were promptly voted down. The majority rejected the teaching that their ancestors had been guilty of rebellion; they resented such a racial stigma. Having disposed of one of the three angles to the dispute and failing to settle the other two by debate, they fell to fighting. The religionists, the noncombatants, fled to their homes in the south, while their fellows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족속**(**노드족속**과 **아담족속**)이라는 혼합된 인종들이 첫 구조물의 폐허 위에 새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했지만, 그 계획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으며; 그 자체의 과장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 땅으로 알려졌다.

4. 노드족속의 문명 중심지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다툼이 즉시 가져온 결과는 **노드족속**의 분산이었다. 이 내란(內亂)은 순수한 혈통의 **노드족속** 숫자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아담** 이전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때부터 **노드족속**의 문화는, **아담**의 피가 주입(注入)돼서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계속 퇴보했다. 그러나 심지어 **아담** 시대에도, **노드족속**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로 합류했고, **반** 집단에서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은 **노드족속**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사람 가운데 일부도 이 인종이었다.

노드족속의 4대 중심지 중에서 3개는 **배브롯** 투쟁 직후에 건설됐다:

1. 서부(西部, 즉 **시리아**의 **노드족속**. 민족 또는 종족을 기념하려는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했고, **안돈족속**과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후대의 **노드족속** 중심지를 건설했다. 이들은 분산된 **노드족속**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나중에 나타난 **앗수르인**의 혈통에 많이 기여했다.

2. 동부, 즉 **엘람**의 **노드족속**. 문화와 상업을 지시하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엘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혼합된 **상익** 부족들과 결합했다. 3만 년 또는 4만 년 전의 **엘람**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이미 주로 **상익** 인종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야만인의 문명보다 우수한 문명을 계속 유지했다.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에는, 근처에 있던 이 **노드족속** 정착지를 “**노**의 땅”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였으며; **노드족속** 집단과 **아담족속**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두 종족의 피가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곧 **아담족속**)이 사람의 딸들(곧 **노드족속**)과 서로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관습이 됐기 때문이다.

3. 중부, 즉 **수메르인** 이전의 **노드족속**.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는 작은 집단이,

fought until well-nigh obliterated.

77:3.9 (859.3) About twelve thousand years ago a second attempt to erect the tower of Babel was made. The mixed races of the Andites (Nodites and Adamites) undertook to raise a new temple on the ruins of the first structure, but there was not sufficient support for the enterprise; it fell of its own pretentious weight. This region was long known as the land of Babel.

4. NODITE CENTERS OF CIVILIZATION

77:4.1 (859.4) The dispersion of the Nodites was an immediate result of the internecine conflict over the tower of Babel. This internal war greatly reduced the numbers of the purer Nodites and was in many ways responsible for their failure to establish a great pre-Adamic civilization. From this time on Nodite culture declined for over one hundred and twenty thousand years until it was upstepped by Adamic infusion. But even in the times of Adam the Nodites were still an able people. Many of their mixed descendants were numbered among the Garden builders, and several of Van's group captains were Nodites. Some of the most capable minds serving on Adam's staff were of this race.

77:4.2 (859.5) Three out of the four great Nodite centers were established immediately following the Bablot conflict:

77:4.3 (859.6) 1. *The western or Syrian Nodites.* The remnants of the nationalistic or racial memorialists journeyed northward, uniting with the Andonites to found the later Nodite centers to the northwest of Mesopotamia. This was the largest group of the dispersing Nodites, and they contributed much to the later appearing Assyrian stock.

77:4.4 (859.7) 2. *The eastern or Elamite Nodites.* The culture and commerce advocates migrated in large numbers eastward into Elam and there united with the mixed Sangik tribes. The Elamites of thirty to forty thousand years ago had become largely Sangik in nature, although they continued to maintain a civilization superior to that of the surrounding barbarians.

77:4.5 (859.8)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garden it was customary to allude to this near-by Nodite settlement as “the land of Nod”; and during the long period of relative peace between this Nodite group and the Adamites, the two races were greatly blended, for it became more and more the custom for the Sons of God (the Adamites) to intermarry with the daughters of men (the Nodites).

77:4.6 (860.1) 3. *The central or pre-Sumerian Nodites.* A small group at the mouth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maintained more of their

본래의 인종 상태를 더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아담족속**과 피가 섞여서, 역사 시대에 **수메르** 민족을 세운 **노족속**의 조상을 이뤘다.

그리고 **수메르인**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 무대에 나타났는지를, 이 모든 것이 설명해 준다. 너희는 아무리 조사해도 **수메르인**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달라마시아**가 물에 가라앉은 후인, 20만 년 전에 기원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그들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지만, 고대의 이 부족들은, 완전히 성숙된 모습과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채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났다. 진전, 금속 기술, 농업, 동물, 질그릇 만들기, 천짜기, 상업 법률, 시민사회 규범, 종교 예식절차, 및 옛 글씨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은 오래 전부터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어버렸는데, **딜문**에서 시작된 독특한 글씨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비록 세상에 실제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셈** 계통이 아니었으며; 소위 **아리아** 방언과 공통점이 많았다.

수메르인이 남긴 정교한 기록이, **딜문**이라는 초기 도시 근처의 **페르시아만**에 자리잡은, 주목할 만한 정착 지역을 묘사한다. **이집트인**은 이 도시를 고대의 영광스런 **딜맛**이라고 불렀으며, 한편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족속** 도시와 **달라마시아**를 혼동해서, 이것을 모두 **딜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토판(土版)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 토판은, 초기의 “**하나님**들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생활에 대한 표본으로 인류를 축복한 곳”이라고, 이 세상 낙원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낙원**인 이 **딜문**을 설명하는 이 토판들은, 현재 여러 박물관 선반 위에 먼지로 뒤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수메르인은 첫 **에덴**과 두 번째 **에덴**을 잘 알았지만, **아담족속**과 널리 서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동산 거주자들을 계속 이질적인 족속으로 간주했다. 훨씬 오래된 **노족속**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긴 **수메르인**은, **딜문**이라는 도시의 웅장함과 낙원같은 전통에 우호적이어서, 이런 후기의 영광스런 추억을 무시했다.

4. 북부의 **노족속**과 **아마돈족속** -- **반족속**. 이 집단은 **배브롯** 투쟁이 있기 전에 조성됐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노족속**은, **노**와 그의 후손의 지도 체제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을 추종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반의 초기 동역자 중에서 더러는 그의 이름을 여전히 지닌 호숫가 부근에 나중에 정착했고, 그들의 전통은 그 부근에서 번성했다. **아라랏 산**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됐는데, **시내 산**이 **히브리인**에게 의미를 갖듯이, 후대의 **반** 자손에게 매

racial integrity. They persist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eventually furnished the Nodite ancestry which blended with the Adamites to found the Sumerian peoples of historic times.

77.4.7 (860.2) And all this explains how the Sumerians appeared so suddenly and mysteriously on the stage of action in Mesopotamia. Investigators will never be able to trace out and follow these tribes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umerians, who had their origin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fter the submergence of Dalamatia. Without a trace of origin elsewhere in the world, these ancient tribes suddenly loom upon the horizon of civilization with a full-grown and superior culture, embracing temples, metalwork, agriculture, animals, pottery, weaving, commercial law, civil codes, religious ceremonial, and an old system of writing. At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era they had long since lost the alphabet of Dalamatia, having adopted the peculiar writing system originating in Dilmun. The Sumerian language, though virtually lost to the world, was not Semitic; it had much in common with the so-called Aryan tongues.

77.4.8 (860.3) The elaborate records left by the Sumerians describe the site of a remarkable settlement which was located on the Persian Gulf near the earlier city of Dilmun. The Egyptians called this city of ancient glory Dilmun, while the later Adamized Sumerians confused both the first and second Nodite cities with Dalamatia and called all three Dilmun. And already have archaeologists found these ancient Sumerian clay tablets which tell of this earthly paradise “where the Gods first blessed mankind with the example of civilized and cultured life.” And these tablets, descriptive of Dilmun, the paradise of men and God, are now silently resting on the dusty shelves of many museums.

77.4.9 (860.4) The Sumerians well knew of the first and second Edens but, despite extensive intermarriage with the Adamites, continued to regard the garden dwellers to the north as an alien race. Sumerian pride in the more ancient Nodite culture led them to ignore these later vistas of glory in favor of the grandeur and paradisiacal traditions of the city of Dilmun.

77.4.10 (860.5) 4. The northern Nodites and Amadonites — the Vanites. This group arose prior to the Bablot conflict. These northernmost Nodites were descendants of those who had forsaken the leadership of Nod and his successors for that of Van and Amadon.

77.4.11 (860.6) Some of the early associates of Van subsequently settled about the shores of the lake which still bears his name, and their traditions grew up about this locality. Ararat became their sacred mountain, having much the same meaning to later-day Vanites that Sinai had to the Hebrews.

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1만 년 전에, **앗수르인의 반족속** 선조는, 일곱 계명으로 된 도덕률을, **하나님들이 아라랏 산**에서 **반**에게 수여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동역자 **아마돈**이 그 산에 올라가서 경배 드리는 가운데, 행성으로부터 산 채로 들려 올라갔다고 굳게 믿었다.

아라랏 산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신성시되는 산이었으며, 이런 옛 시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전통 대부분이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아라랏 산**과 그 지역이, **노아**의 홍수와 세계적 홍수에 관한 **유대인**의 후대 이야기 속에 짜 맞춰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기원전 약 35,000년경에, **아담선**은 자신의 문명 중심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동쪽에 있는 **반족속**의 옛 정착지를 가운데 한 곳을 방문했다.

5. 아담선과 라타

2차 중도자의 족보에 관해서 **놏족속**의 내력을 묘사했으므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 족보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담** 쪽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 2차 중도자 역시 **유란시아**에 처음 태어난 보라색 인종인 **아담선**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선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무리에 속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맏아들은, 북쪽에 있었던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집 이야기를 종종 들었으며,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자신이 어렸을 때 꿈에 그리던 이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때 **아담선**은 120세였고, 첫 동산에서 낳은 순수한 핏줄의 자녀 32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남아서 그들을 도와 두 번째 동산을 세우고 싶었지만, 자기 짝과 자녀들을 잃음으로써 크게 동요됐는데, 그들은 모두,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아담**의 다른 자녀들을 따라서, **에덴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아담선은 **유란시아**에 있는 부모를 쓸쓸히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싫어했지만, 두 번째 동산에 함께 머무는 것은 크게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방어하고 건축하는 초기 활동에 많이 공헌했으나, 기회가 나는 대로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아담**과 **이브**는, 맏아들이 길을 떠나서 낯설고 호전적(好戰的)인 세계로 가게 된 것을 무척 슬퍼했으며,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는 어렸을 때 상상하던 이 사람들을 찾아

Ten thousand years ago the Vanite ancestors of the Assyrians taught that their moral law of seven commandments had been given to Van by the Gods upon Mount Ararat. They firmly believed that Van and his associate Amadon were taken alive from the planet while they were up on the mountain engaged in worship.

77:4.12 (860.7) Mount Ararat was the sacred mountain of northern Mesopotamia, and since much of your tradition of these ancient times was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it is not surprising that Mount Ararat and its region were woven into the later Jewish story of Noah and the universal flood.

77:4.13 (860.8) About 35,000 B.C. Adamson visited one of the easternmost of the old Vanite settlements to found his center of civilization.

5. ADAMSON AND RATTATTA

77:5.1 (861.1) Having delineated the Nodite antecedents of the ancestry of the secondary midwayers, this narrative should now give consideration to the Adamic half of their ancestry, for the secondary midwayers are also the grandchildren of Adamson, the first-born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77:5.2 (861.2) Adamson was among that group of the children of Adam and Eve who elected to remain on earth with their father and mother. Now this eldest son of Adam had often heard from Van and Amadon the story of their highland home in the north, and sometim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garden he determined to go in search of this land of his youthful dreams.

77:5.3 (861.3) Adamson was 120 years old at this time and had been the father of thirty-two pure-line children of the first garden. He wanted to remain with his parents and assist them in upbuilding the second garden, but he was greatly disturbed by the loss of his mate and their children, who had all elected to go to Edentia along with those other Adamic children who chose to become wards of the Most Highs.

77:5.4 (861.4) Adamson would not desert his parents on Urantia, he was disinclined to flee from hardship or danger, but he found the associations of the second garden far from satisfying. He did much to forward the early activities of defense and construction but decided to leave for the north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nd though his departure was wholly pleasant, Adam and Eve were much grieved to lose their eldest son, to have him go out into a strange and hostile world, as they feared, never to return.

77:5.5 (861.5) A company of twenty-seven followed

서, 27명의 무리가 **아담선**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3년 조금 넘었을 때, **아담선** 무리는 자신들의 모험 대상이던 그 목적지를 실제로 발견했고, 그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20세의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는 **왕자** 참모진의 순수한 핏줄을 가진 마지막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라타**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자기 조상은 모두 **왕자**의 몰락한 참모진 가운데 두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그 종족에서 마지막 사람이었고,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자식 없이 죽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지만, 위엄 있는 **아담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에덴**에 관한 이야기, 즉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정말로 이뤄졌는지 듣게 됐을 때, 그리고 **동산**의 태만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아담**의 자손이자 아들인 이 사람과 결혼하는—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곧 **아담선**에게도 생겼다. 그들은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결혼했다.

아담선과 **라타**는 자녀 67명을 가족으로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혈통을 지닌 이 세상 지도자들을 낳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룩했다. 이 두 존재 모두 진정으로 초인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네 번째마다 독특한 계층에 속했다.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역사에서 그런 일은 발생된 적이 없었다. **라타**는 매우 당황했지만—심지어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아담선**은 1차 중도자의 실존을 잘 알았으며, 비슷한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지어 주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 계층의 중도자가 이렇게 기원됐다. 이런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 거의 2,000명이 태어났다.

아담선은 396년을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와 **라타**는 매 7년마다 남쪽으로 여행해서 두 번째 **동산**으로 갔고, 그동안에 중도자들이 그의 민족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계속 전해줬다. **아담선**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지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아담선과 **라타**는 불가사의한 이 협조자 단체를 그렇게 지휘했는데, 그들은 진보된 진리를 전파하는 일과, 더 높은 영적, 지적, 및 육체적 생활 표준을 펴뜨리는 일에서, 오래 살아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는, 그 후에 일어난 쇠퇴 과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빛을 잃지는 않았다.

아담선족속은 **아담선**과 **라타**의 시대부터 거의 7천 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에 있는 **놋족속** 및 **안돈족속**과

Adamson northward in quest of these people of his childhood fantasies. In a little over three years Adamson's party actually found the object of their adventure, and among these people he discovered a wonderful and beautiful woman, twenty years old, who claimed to be the last pure-line descendant of the Prince's staff. This woman, Ratta, said that her ancestors were all descendants of two of the fallen staff of the Prince. She was the last of her race, having no living brothers or sisters. She had about decided not to mate, had about made up her mind to die without issue, but she lost her heart to the majestic Adamson. And when she heard the story of Eden, how the predictions of Van and Amadon had really come to pass, and as she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e Garden default, she was encompassed with but a single thought — to marry this son and heir of Adam. And quickly the idea grew upon Adamson. In a little more than three months they were married.

77:5.6 (861.6) Adamson and Ratta had a family of sixty-seven children. They gave origin to a great line of the world's leadership, but they did something mor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both of these beings were really superhuman. Every fourth child born to them was of a unique order. It was often invisible. Never in the world's history had such a thing occurred. Ratta was greatly perturbed — even superstitious — but Adamson well knew of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midwayers, and he concluded that something similar was transpiring before his eyes. When the second strangely behaving offspring arrived, he decided to mate them, since one was male and the other female, and this is the origin of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ers. Within one hundred years, before this phenomenon ceased, almost two thousand were brought into being.

77:5.7 (862.1) Adamson lived for 396 years. Many times he returned to visit his father and mother. Every seven years he and Ratta journeyed south to the second garden, and meanwhile the midwayers kept him informed regarding the welfare of his people. During Adamson's life they did great service in upbuilding a new and independent world center for truth and righteousness.

77:5.8 (862.2) Adamson and Ratta thus had at their command this corps of marvelous helpers, who labored with them throughout their long lives to assist in the propagation of advanced truth and in the spread of higher standards of spiritual, intellectual, and physical living. And the results of this effort at world betterment never did become fully eclipsed by subsequent retrogressions.

77:5.9 (862.3) The Adamsonites maintained a high culture for almost seven thousand years from the times of Adamson and Ratta. Later on they

섞이게 됐고, 또한 “옛날의 용사들” 가운데 포함됐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뤄진 진보 가운데 일부는, 후대에 유럽 문명에서 꽃피웠던 문화 잠재력의 잠복된 부분으로 계속 유지됐다.

이 문명 중심지는 코펫 다그 근처, 카스피해의 남쪽 끝 부분의 동쪽 지역에 위치했다. 투르케스탄에 있는 구릉지대 약간 위쪽은, 한때 보라색 인종의 아담선족속 본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지대에 있는 좁고 오래된 비옥한 띠 모양의 땅에 자리 잡은 이런 고원지대에서는, 서로 다른 네 집단의 아담선 후손이 각각 조성한, 네 개의 다양한 문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달아 나타났다. 이 무리 가운데 두 번째 무리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이주했다. 나머지 아담선 후예는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마지막 안드족속 인파를 이룬 혼혈 혈통의 사람들이 따라갔으며, 그들 역시 인도를 침입한 안드족속 아리아인에 포함돼 있었다.

became admixed with the neighboring Nodites and Andonites and were also included among the “mighty men of old.” And some of the advances of that age persisted to become a latent part of the cultural potential which later blossomed into European civilization.

77:5.10 (862.4) This center of civilization was situated in the region east of the southern end of the Caspian Sea, near the Kopet Dag. A short way up in the foothills of Turkestan are the vestiges of what was onetime the Adamsonite headquarters of the violet race. In these highland sites, situated in a narrow and ancient fertile belt lying in the lower foothills of the Kopet range, there successively arose at various periods four diverse cultures respectively fostered by four different groups of Adamson's descendants. It was the second of these groups which migrated westward to Greece and the islands of the Mediterranean. The residue of Adamson's descendants migrated north and west to enter Europe with the blended stock of the last Andite wave coming out of Mesopotamia, and they were also numbered among the Andite-Aryan invaders of India.

6.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가 거의 초인적 기원을 가진 것에 반해, 2차 계층은 순수한 아담 혈통이, 선임{先任} 단체 가문과 공통 조상을 갖는 인간화된 후손과 결합해서 태어난 자손이다.

아담선의 자녀 가운데 2차 중도자의 색다른 선조는 오직 열여섯 명 있었다. 이런 독특한 자녀는 남녀의 숫자가 똑같이 구성돼 있었으며, 각 쌍은 성교{性交} 및 비성교{非性交} 접촉의 혼합된 기법으로, 매 70일마다 2차 중도자를 출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열여섯 명의 이 자녀는 (그들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지만, 전기{電氣}로 에너지를 받는 그들의 자손은 계속 생명이 유지됐고,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았다.

여덟 쌍은 각각, 결국 248명의 중도자를 출산했고, -- 1,984명의 -- 원래 2차 단체는 그렇게 해서 실존하게 됐다. 2차 중도자에게는 여덟 가지 하위{下位}집단이 있다. 그들은 A_B_C 첫 번째, A_B_C 두 번째, A_B_C 세 번째로 불리고, 그렇게 계속된다. 그 다음에는 D_E_F 첫 번째, D_E_F 두 번째이고, 그렇게 계속된다.

아담의 태만이 있는 뒤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돕는 일로 돌아간 반면, 2차 집단은 아담선이 죽을 때까지 아담선 중심부에 소속됐다. 이 2차 중도자 가운데 33명, 즉 아담선이 죽

6. THE SECONDARY MIDWAYERS

77:6.1 (862.5) While the primary midwayers had a well-nigh superhuman origin, the secondary order are the offspring of the pure Adamic stock united with a humanized descendant of ancestors common to the parentage of the senior corps.

77:6.2 (862.6) Among the children of Adamson there were just sixteen of the peculiar progenitors of the secondary midwayers. These unique children were equally divided as regards sex, and each couple was capable of producing a secondary midwayer every seventy days by a combined technique of sex and nonsex liaison. And such a phenomenon was never possible on earth before that time, nor has it ever occurred since.

77:6.3 (862.7) These sixteen children lived and died (except for their peculiarities) as mortals of the realm, but their electrically energized offspring live on and on, not being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mortal flesh.

77:6.4 (862.8) Each of the eight couples eventually produced 248 midwayers, and thus did the original secondary corps -- 1,984 in number -- come into existence. There are eight subgroups of secondary midwayers. They are designated as A-B-C the first, second, third, and so on. And then there are D-E-F the first, second, and so on.

77:6.5 (862.9) After the default of Adam the primary midwayers returned to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while the secondary group were attached to the Adamson center until his

있을 때 그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멜기세덱**을 섬기는 쪽으로 전체 체제를 전향시켜서, 그런 식으로 1차 단체와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동무들을 버리고 한 덩어리가 되어 행성 관재인들을 섬기는 쪽으로 옮겨갔다.

아담선이 죽은 후에, 나머지 2차 중도자들은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영향을 **유란시아**에 끼치게 됐다. 그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까지, 그들은 변칙적이고 조직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충성스런 대다수는 그때 1차 중도자의 지휘 아래 편입됐다.

7. 반역에 가담한 중도자

루시퍼의 반역이 있을 때 대다수의 1차 중도자가 죄를 범했다. 행성 반역의 참상이 평가됐을 때, 여러 손실 가운데서, 원래의 50,000명 가운데 40,119명이 **캘리개스차**의 탈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중도자의 원래 숫자는 1,98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오순절** 날 **유란시아**에 내려진 행성 판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감금(監禁)됐다. 이 타락한 피조물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두 집단의 반역한 중도자들은 모두, 현재 감금(監禁)된 상태에서 체계 반역의 용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이 불충한 중도자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필사자의 눈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히 이것은 변절한 2차 중도자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동역자들에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이 세상에 역시 존재했던, 반역에 가담한 어떤 체루빔 및 스라빔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어떤 작가들은 반역한 이 중도 피조물을 악한 영과 귀신으로 표현했고, 배신한 스라빔을 악한 천사로 표현했다.

증여된 **낙원 아들**의 생애가 끝난 후에는, 어느 세상에서든지 악한 영이 어떤 필사 정신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는--곧 **사고 조율사**가 보편적으

death. Thirty-three of these secondary midwayers, the chiefs of their organization at the death of Adamson, endeavored to swing the whole order over to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s, thus effecting a liaison with the primary corps. But failing to accomplish this, they deserted their companions and went over in a body to the service of the planetary receivers.

77:6.6 (863.1) After the death of Adamson the remainder of the secondary midwayers became a strange, unorganized, and unattached influence on Urantia. From that time to the days of Machiventa Melchizedek they led an irregular and unorganized existence. They were partially brought under control by this Melchizedek but were still productive of much mischief up to the days of Christ Michael. And during his sojourn on earth they all made final decisions as to their future destiny, the loyal majority then enlisti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mary midwayers.

7. THE REBEL MIDWAYERS

77:7.1 (863.2) The majority of the primary midwayers went into sin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When the devastation of the planetary rebellion was reckoned up, among other losses it was discovered that of the original 50,000, 40,119 had joined the Caligastia secession.

77:7.2 (863.3) The original number of secondary midwayers was 1,984, and of these 873 failed to align themselves with the rule of Michael and were duly interned in connection with the planetary adjudication of Urantia on the day of Pentecost. No one can forecast the future of these fallen creatures.

77:7.3 (863.4) Both groups of rebel midwayers are now held in custody awaiting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system rebellion. But they did many strange things on earth prior to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planetary dispensation.

77:7.4 (863.5) These disloyal midwayers were able to reveal themselves to mortal ey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especially was this true of the associates of Beelzebub, the leader of the apostate secondary midwayers. But these unique creatures must not be confused with certain of the rebel cherubim and seraphim who also were on earth up to the tim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Some of the older writers designated these rebellious midway creatures as evil spirits and demons, and the apostate seraphim as evil angels.

77:7.5 (863.6) On no world can evil spirits possess any mortal mind subsequent to the life of a Paradise bestowal Son. But before the day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 before the universal

로 도래하기 전, 그리고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 전에는-- 반역에 가담한 이 중도자들이 실제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조울사**가 초인간 지성체들과 접촉하는 시기 내내, 사실상 그 인격으로부터 분리돼 있는 동안, 충성스런 중도자가 **유란시아** 운명 예비 단체의 인간 정신과 접촉하는 유능한 보호자로서 봉사할 때 작용하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게, 이것이 이뤄졌다.

그 기록이 이렇게 진술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다.“그리고 그들이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정신병과 귀신들린 것의 차이를 알았고 구별했지만, 그 당시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크게 혼동했다.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도, 반역에 가담한 어떤 영이든지 정상 인간 정신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 날 이후로는, 연약한 정신을 소유한 열등한 인간도 그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뒤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여기는 것은, 히스테리, 정신이상, 및 정신박약을 귀신들린 것으로 믿는 혼동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가엘**의 중여가,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을 귀신들릴 가능성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측하지는 말아라.

반역에 가담한 모든 중도자는, 현재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고 조울사**의 현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진리의 영**이 부어짐에 따라서, 어떤 종류 또는 어떤 계층의 불충한 영이든지, 가장 연약한 인간 정신이라도 다시 침입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 **오순절** 날 이후로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8. 연합한 중도자

최근에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있을 당시에, 잠자고 있던, 시간세계에서 생존한 자들을 **미가엘**이 이동시켰을 때, 중도 피조물은 그대로 남았는데, 행성에서 영적인 일과 약간영적인 일을 돕도록 남겨졌다. 그들은 현재 단일 단체로 활동하며, 두 계층이 모두 포함돼 있고, 10,992명이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각 계층의 선임(先任) 요원이 번갈아가며 통치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오순절** 직후에 하나의 집단으로 합병될 때부터 성립됐다.

오래된 계층, 즉 첫째 계층의 요원들은 대개 숫자로 알려지는데, 마치 1_2_3 첫째, 4_5_6 첫째

coming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pouring out of the Master's spirit upon all flesh — these rebel midwayers were actually able to influence the minds of certain inferior mortals and somewhat to control their actions. This was accomplished in much the same way as the loyal midway creatures function when they serve as efficient contact guardians of the human minds of the Urantia reserve corps of destiny at those times when the Adjuster is, in effect, detached from the personality during a season of contact with superhuman intelligences.

77:7.6 (863.7) It is no mere figure of speech when the record states: “And they brought to Him all sorts of sick people, those who were possessed by devils and those who were lunatics.” Jesus knew and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insanity and demoniacal possession, although these states were greatly confused in the minds of those who lived in his day and generation.

77:7.7 (863.8) Even prior to Pentecost no rebel spirit could dominate a normal human mind, and since that day even the weak minds of inferior mortals are free from such possibilities. The supposed casting out of devils since the arrival of the Spirit of Truth has been a matter of confounding a belief in demoniacal possession with hysteria, insanity, and feeble-mindedness. But just because Michael's bestowal has forever liberated all human minds on Urantia from the possibility of demoniacal possession, do not imagine that such was not a reality in former ages.

77:7.8 (864.1) The entire group of rebel midwayers is at present held prisoner by order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No more do they roam this world on mischief bent.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forever made it impossible for disloyal spirits of any sort or description ever again to invade even the most feeble of human minds.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ere never again can be such a thing as demoniacal possession.

8. THE UNITED MIDWAYERS

77:8.1 (864.2) At the last adjudication of this world, when Michael removed the slumbering survivors of time, the midway creatures were left behind, left to assist in the spiritual and semispiritual work on the planet. They now function as a single corps, embracing both orders and numbering 10,992.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are at present governed alternately by the senior member of each order. This regime has obtained since their amalgamation into one group shortly after Pentecost.

77:8.2 (864.3) The members of the older or primary order are generally known by numerals; they are

등과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 후손 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을 숫자로 호칭하는 것에서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두 계층 모두, 영양물과 에너지 섭취를 고려할 때에는 비물질 존재이지만, 인간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며, 너희의 경배뿐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유머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인간에게 배속됐을 때, 그들은 인간의 업무, 휴식, 및 놀이의 기질을 짐작한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자지 않고, 변식하는 능력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둘째 집단은 남성적인 모습과 여성적인 모습에 따라서 계통이 나뉘어 있는데, 종종 “그” 또는 “그녀”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그런 쌍을 이뤄서 일한다.

중도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는 본성적으로 천사보다 인간에 가까우며; 어떤 면에서 너희 인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접촉할 때 대단히 잘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며; 다양한 인간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스라빔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이며, 인간의 개인 수호자로서 봉사하는 스라빔에게, 두 집단 모두 필수적인 존재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타고난 재능과 획득된 솜씨에 따라서, 행성 스라빔과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조직돼 있다:

1. **중도 사자(使者)**. 이 집단은 이름을 갖고 있으며; 작은 단체이고,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봉사에서 진화 세계를 크게 돕는다.

2. **행성 파수꾼**. 중도자는, 공간 세계들의 수호자, 즉 파수꾼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중요한, 수많은 현상과 유형의 통신 전체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행성의 보이지 않는 영 영역을 순찰한다.

3. **접촉하는 인격체**. 이 통신문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상대자의 경우처럼, 물질 세계의 필사{必死} 존재들과 접촉할 때, 중도 피조물이 항상 이용된다. 그들은 영적 수준과 물질적 수준의 그런 접촉에서 필수 요소다.

4. **진보 협조자**. 이들은 중도 피조물 중에서 더 영적인 자들이며, 행성에서 특별한 집단을 이뤄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스라빔에게 협조하도록 배치돼 있다.

중도자들은, 위로는 스라빔과, 그리고 아래로는 인간 사촌과 접촉하는 역량이 무척 다르다. 이

often given names such as 1-2-3 the first, 4-5-6 the first, and so on. On Urantia the Adamic midwayers are designated alphabetically in order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numerical designation of the primary midwayers.

77:8.3 (864.4) Both orders are nonmaterial beings as regards nutrition and energy intake, but they partake of many human traits and are able to enjoy and follow your humor as well as your worship. When attached to mortals, they enter into the spirit of human work, rest, and play. But midwayers do not sleep, neither do they possess powers of procreation. In a certain sense the secondary group are differentiated along the lines of maleness and femaleness, often being spoken of as “he” or “she.” They often work together in such pairs.

77:8.4 (864.5) Midwayers are not men, neither are they angels, but secondary midwayers are, in nature, nearer man than angel; they are, in a way, of your races and are, therefore, very understanding and sympathetic in their contact with human beings; they are invaluable to the seraphim in their work for and with the various races of mankind, and both orders are indispensable to the seraphim who serve as personal guardians to mortals.

77:8.5 (864.6)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are organized for service with the planetary seraphim in accordance with innate endowments and acquired skills, in the following groups:

77:8.6 (864.7) 1. *Midway messengers*. This group bear names; they are a small corps and are of great assistance on an evolutionary world in the service of quick and reliable personal communication.

77:8.7 (864.8) 2. *Planetary sentinels*. Midwayers are the guardians, the sentinels, of the worlds of space. They perform the important duties of observers for all the numerous phenomena and types of communication which are of import to the supernatural beings of the realm. They patrol the invisible spirit realm of the planet.

77:8.8 (865.1) 3. *Contact personalities*. In the contacts made with the mortal beings of the material worlds, such as with the subject through whom these communications were transmitted, the midway creatures are always employed. They are an essential factor in such liaisons of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levels.

77:8.9 (865.2) 4. *Progress helpers*. These are the more spiritual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ey are distributed as assistants to the various orders of seraphim who function in special groups on the planet.

77:8.10 (865.3) Midwayers vary greatly in their abilities to make contact with the seraphim above and with

를테면, 1차 중도자들은 물질 매개체와 직접 접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천사 유형의 존재에 현저히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 행성에 거주하는 영적 무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배정된다. 그들은 천상(天上)의 방문자와 학생 체류자들을 위한 동무 및 안내자로서 행동하며, 한편 2차 피조물은 그 영역의 물질 존재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배속돼 있다.

1,111명의 충성스런 2차 중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그들은 1차 동역자들과 비교할 때, 단연코 물질적이다. 그들은 인간 시력 범위 바로 밖에 있고, 인간이 “물질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음대로 육체적 접촉을 하기에 충분한 적응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독특한 피조물은, 시공간 세계의 사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영역의 침습도 예외가 아니다.

천사의 탓으로 돌리는, 글자 그대로 일어난 많은 현상은 2차 중도자가 수행한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초기 선생들을 당시의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뒀을 때, 실제로 “**주(主)**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야고보**가 처형된 후 **베드로**가 구출된 경우에, 천사의 탓으로 돌린 그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오늘날 그들의 주된 업무는, 행성의 운명 예비 단체를 구성하는 남녀에게, 눈에 띄지 않은 체 몸소 연락하는 동료로서 하는 업무다. 천상(天上)의 행정 감독관들로 하여금 여러 청원(請願)의 시작을 마침내 유도하도록, **유란시아**에서 인격체들 및 환경 조건의 조정을 일으킨 것은 이 2차 집단의 작용이었고, 1차 단체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이를 훌륭하게 후원했는데, 이런 청원은, 일련의 계시를 가능하게 만든 명령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본 발표문(發表文)은 그 계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은, 중도 피조물은 대개 “심령술”로 알려진 그런 상황 아래서 자행되는 지저분한 연기(演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란시아**에 현존하는 중도자는, 그들 전체가 존경할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영매(靈媒)”로 불리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들은, 때때로 물리적 활동을 하거나, 물질세계와 달리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감각이 감지하듯이 그렇게 인간이 구경하는 것은 대개 허용하지 않는다.

9. 유란시아의 영구 시민

인간 피조물처럼 진화하면서 상승하는 존재

their human cousins below.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instance, for the primary midwayers to make direct contact with material agencies. They are considerably nearer the angelic type of being and are therefore usually assigned to working with, and ministering to, the spiritual forces resident on the planet. They act as companions and guides for celestial visitors and student sojourners, whereas the secondary creatures are almost exclusively attached to the ministry of the material beings of the realm.

77:8.11 (865.4) The 1,111 loyal secondary midwayers are engaged in important missions on earth. As compared with their primary associates, they are decidedly material. They exist just outside the range of mortal vision and possess sufficient latitude of adaptation to make, at will, physical contact with what humans call “material things.” These unique creatures have certain definite powers over the things of time and space, not excepting the beasts of the realm.

77:8.12 (865.5) Many of the more literal phenomena ascribed to angels have been performed by the secondary midway creatures. When the early teachers of the gospel of Jesus were thrown into prison by the ignorant religious leaders of that day, an actual “angel of the Lord” “by night opened the prison doors and brought them forth.” But in the case of Peter’s deliverance after the killing of James by Herod’s order, it was a secondary midwayer who performed the work ascribed to an angel.

77:8.13 (865.6) Their chief work today is that of unperceived personal-liaison associates of those men and women who constitute the planetary reserve corps of destiny. It was the work of this secondary group, ably seconded by certain of the primary corps, that brought about the co-ordination of personalities and circumstances on Urantia which finally induced the planetary celestial supervisors to initiate those petitions that resulted in the granting of the mandates making possible the series of revelations of which this presentation is a part. But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midway creatures are not involved in the sordid performances taking place under the general designation of “spiritualism.” The midwayers at present on Urantia, all of whom are of honorable standing, are not connected with the phenomena of so-called “mediumship”; and they do not, ordinarily, permit humans to witness their sometimes necessary physical activities or other contacts with the material world, as they are perceived by human senses.

9. THE PERMANENT CITIZENS OF URANTIA

77:9.1 (865.7) Midwayers may be regarded as the first group of the permanent inhabitants to be found on

들 및 천사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중도자는 여러 우주에 두루, 다양한 체계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 가운데 첫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다양한 지점에서, 그런 영구 시민을 만나게 된다.

행성에서 **사역**하도록 배정된 다양한 계층의 천상의 존재와는 달리, 중도자는 인간거주 세계에서 **산다**. 스라빔은 왔다 갔다 하지만, 중도 피조물은 머물고 있고 앞으로는 머물 것이며, 비록 행성의 토착민 신분으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스랍 무리의 변화하는 경영진과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하나의 계속적인 체제를 마련해 준다.

중도자는 **유란시아**의 실제 시민으로서, 이 구체의 운명에 공통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굳게 결의한 연합체다. 그들 계층이 내걸고 있는 좌우명이 그들의 각오를 암시해 준다: **“연합된 중도자가 착수한 것은, 연합된 중도자가 끝낸다.”**

에너지 회로를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중도자든지 행성을 떠나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우주 권세자들이 언젠가 방면할 때까지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굳게 맹세했다. 중도자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행성에 머물 것이다. 1_2_3 첫째를 제외하고,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은 한 명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1차 계층 가운데 최고 고참인 1_2_3 첫째는, **오순절** 직후에 직접 참여하는 행성 임무에서 해제됐다. 고귀한 이 중도자는, 행성 반역이 있었던 비극적인 날들 동안, **반과 아마돈**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용맹스런 지도력은 자기 계층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데 힘이 됐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조연자 가운데 하나로써 근무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한때 **유란시아** 총독으로서 이미 활동했었다.

중도자는 행성에 묶여 있지만, 필사자가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함으로써 행성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관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자도 천상의 여행자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우주의 먼 지역에 관해서 배운다.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오르본톤** 및 그것의 동종 창조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통하게 됐으며, 피조물 실존 중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준비한다.

중도자는 완전히 발달된 존재로서 태어났지만--곧 미숙한 상태에서부터 자라거나 발달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지혜와 체험에서는 끊임없이 자라왔다. 필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진화하는 피조물이며, 성실하게 진화로 달성하는 어떤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의 중도 단체에는, 위대한 정신과 강력한 영을 소유한 자가 많이 있다.

the various orders of worlds throughout the universes in contrast with evolutionary ascenders like the mortal creatures and the angelic hosts. Such permanent citizens are encountered at various points in the Paradise ascent.

77:9.2 (866.1) Unlike the various orders of celestial beings who are assigned to *minister* on a planet, the midwayers *live* on an inhabited world. The seraphim come and go, but the midway creatures remain and will remain, albeit they are nonetheless ministers for being natives of the planet, and they provide the one continuing regime which harmonizes and connects the changing administrations of the seraphic hosts.

77:9.3 (866.2) As actual citizens of Urantia, the midwayers have a kinship interest in the destiny of this sphere. They are a determined association, persistently working for the progress of their native planet. Their determination is suggested by the motto of their order: “What the United Midwayers undertake, the United Midwayers do.”

77:9.4 (866.3) Although their ability to traverse the energy circuits makes planetary departure feasible to any midwayer, they have individually pledged themselves not to leave the planet prior to their sometime release by the universe authorities. Midwayers are anchored on a planet until the ages of settled light and life. With the exception of 1-2-3 the first, no loyal midway creatures have ever departed from Urantia.

77:9.5 (866.4) 1-2-3 the first, the eldest of the primary order, was released from immediate planetary duties shortly after Pentecost. This noble midwayer stood steadfast with Van and Amadon during the tragic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and his fearless leadership was instrumental in reducing the casualties in his order. He serves at present on Jerusem as a member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having already functioned as governor general of Urantia once since Pentecost.

77:9.6 (866.5) Midwayers are planet bound, but much as mortals talk with travelers from afar and thus learn about remote places on the planet, so do midwayers converse with celestial travelers to learn about the far places of the universe. So do they become conversant with this system and universe, even with Orvonton and its sister creations, and so do they prepare themselves for citizenship on the higher levels of creature existence.

77:9.7 (866.6) While the midwayers were brought into existence fully developed — experiencing no period of growth or development from immaturity — they never cease to grow in wisdom and experience. Like mortals they are evolutionary creatures, and they have a culture which is a bona fide evolutionary attainment. There are many great minds and mighty spirits among the Urantia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유란시아**의 문명은 **유란시아** 필사자와 **유란시아** 중도자의 합동 작품이며, 두 문화 수준 사이에 현재 차이가 있음에도, 이것은 사실이며, 이 차이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정(補正)되지 않을 것이다.

중도자의 문화는, 불멸하는 행성 시민의 작품이므로, 인간의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 흥망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 중도자 단체는 기억하며, 그 기억은 너희가 사는 세계의 전통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다. 그래서 행성의 문화는 그 행성에 늘 남아 있으며,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도,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이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사촌에게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환경이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도자는, **아담**과 **이브**가 죽고 나서 물질적 직무와 영적 직무 사이에 생긴 간격을 보정하는 노련한 사역자다. 그들은 너희의 나이 많은 형, 또는 **유란시아**에 빛과 생명의 안정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에서 전우와 다름없다. **연합된 중도자**는 반역의 _시험을 거친 단체이며, 그들은 이 세계가 오랜 세월 추구하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즉 평화가 실제로 지구에 임하고, 진실로 선한 뜻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게 되는 먼 훗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이 중도자들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업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이 그 영역의 영적 경륜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역으로 행성 직무가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라빔을 크게 돕고 있다.

높은 영들, 천사 무리, 및 중도(中道) 동료들의 조직 전체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낙원** 계획을 증진시키기에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사자와 중도자를 위해서 똑같이, 우주에서 천상의 사업 가운데 하나다--곧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는, 숭고한 종류의 동업관계로,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봉사하고 신성에 도달하게 하는, 생존시키는 숭고한 계획이다.

[**네바돈**의 어느 **천사장**이 제시했음]

midway corps.

77:9.8 (866.7) In the larger aspect the civilization of Urantia is the joint product of the Urantia mortals and the Urantia midwayers, and this is true despite the present differential between the two levels of culture, a differential which will not be compensated prior to the ages of light and life.

77:9.9 (866.8) The midway culture, being the product of an immortal planetary citizenry, is relatively immune to those temporal vicissitudes which beset human civilization. The generations of men forget; the corps of midwayers remembers, and that memory is the treasure house of the traditions of your inhabited world. Thus does the culture of a planet remain ever present on that planet, and in proper circumstances such treasured memories of past events are made available, even as the story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has been given by the midwayers of Urantia to their cousins in the flesh.

77:9.10 (867.1) Midwayers are the skillful ministers who compensate that gap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affairs of Urantia which appeared upon the death of Adam and Eve. They are likewise your elder brethren, comrades in the long struggle to attain a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on Urantia. The United Midwayers are a rebellion-tested corps, and they will faithfully enact their part in planetary evolution until this world attains the goal of the ages, until that distant day when in fact peace does reign on earth and in truth is there good will in the hearts of men.

77:9.11 (867.2) Because of the valuable work performed by these midwayers, we have concluded that they are a truly essential part of the spirit economy of the realms. And where rebellion has not marred a planet's affairs, they are of still greater assistance to the seraphim.

77:9.12 (867.3) The entire organization of high spirits, angelic hosts, and midway fellows is enthusiastically devoted to the furtherance of the Paradise plan for the progressive ascension and perfection attainment of evolutionary mortals, one of the supernal businesses of the universe — the superb survival plan of bringing God down to man and then, by a sublime sort of partnership, carrying man up to God and on to eternity of service and divinity of attainment — alike for mortal and midwayer.

77:9.13 (867.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78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

⇨ 077

유란시아 책

07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78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

색션

소개

1. 인종과 문화의 분포
2. 두 번째 동산의 아담족속
3. 아담족속의 초기 확장
4. 안드족속
5. 안드족속의 이주
6. 안드족속의 마지막 분산
7.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8. 수메르인--마지막 안드족속

소개

두 번째 에덴은 거의 3만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이었다. 이곳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담의 민족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자손을 땅 끝까지 보냈고, 나중에 **노족속** 및 **상익** 부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안드족속**으로 알려지게 됐다. 역사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고, **유란시아**의 문화적 진보를 그토록 대단하게 증진시켜 온 남녀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나아갔다.

본 문서에서 서술될 보라색 인종의 역사는, 기원전 35,000년경에 있었던 아담의 태만 직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5,000년경의 **노족속** 및 **상익** 인종들과의 혼합을 거쳐, **안드족속** 민족들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본거지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

1. 인종과 문화의 분포

PAPER 78

THE VIOLET RACE AFTER THE DAYS OF ADAM

SECTIONS

Introduction

1.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2.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3. Early Expansions of the Adamites
4. The Andites
5. The Andite Migrations
6. The Last Andite Dispersions
7. The Floods in Mesopotamia
8. The Sumerians — Last of the Andites

INTRODUCTION

78:0.1 (868.1) THE second Eden w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for almost thirty thousand years. Here in Mesopotamia the Adamic peoples held forth, sending out their progeny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latterly, as amalgamated with the Nodite and Sangik tribes, were known as the Andites. From this region went those men and women who initiated the doings of historic times, and who have so enormously accelerated cultural progress on Urantia.

78:0.2 (868.2) This paper depicts the planetary history of the violet race, beginning soon after the default of Adam, about 35,000 B.C., and extending down through its amalgamation with the Nodite and Sangik races, about 15,000 B.C., to form the Andite peoples and on to its final disappearance from the Mesopotamian homelands, about 2000 B.C.

1.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아담이 도착했을 때, 인종들의 정신과 도덕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육체의 진화는 **캘리개스차**의 반역으로 생긴 급박한 사태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인종들의 생물학적 상태에 **아담**이 기여한 것은, 그 이행업무가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에도, **유란시아** 민족을 막대하게 증진시켰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사회적, 도덕적, 및 지적(知的) 진보에도 유익한 많은 것을 기증했으며; 문명은 그들의 자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러나 3만 5천 년 전에, 세계는 일반적으로 문화를 거의 소유하지 못했다. 특정한 문명 중심지가 여기저기 있었지만, **유란시아** 대부분은 미개한 상태에서 괴로워했다. 인종과 문화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1. **보라색 인종--아담족속과 아담선족속.** **아담족속** 문화의 대표적 중심지는 두 번째 동산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 지역에 위치했으며, 이 지역은 진정으로 **서양**과 **인도** 문명의 발상지였다. 보라색 인종의 두 번째 중심지, 즉 북쪽 중심지는 **아담선족속**의 본부였고, **코펫** 산맥 근처 **카스피 해** 남부 해변 동쪽에 자리 잡았다. 이 두 중심지로부터 문화와 생명 원형질이 주변 땅들로 퍼져 나갔는데, 이것은 모든 인종에게 즉각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2. **수메르_이전 족속 및 기타 노족속.** **메소포타미아**에는 또한 그 강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달라마시아** 시절 고대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현존했다.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집단은 북쪽에 있는 **아담족속**과 완전히 섞이게 됐지만, **노족속**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 **레반트**에 정착했던 다양한 다른 **노족속** 집단들은, 후대에 팽창하는 보라색 종족에게 대개 흡수됐다.

3. **안돈족속은, 아담선** 본부의 북동쪽에 있는 다섯 내지 여섯 개의 매우 전형적인 정착지를 유지했다. 또한 그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들 중에서 고립된 집단들이 **유라시아** 전역 특히 산악 지역에 살아남았다. 이 원주민은 **아이슬랜드** 및 **그린랜드**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 북쪽 지역에 여전히 기거했지만, **유럽** 평원에서는 청색인에게,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의 하천 계곡지역에서는 팽창하는 황색인에게 쫓겨난 지 오래 됐다.

4. **홍색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했는데, **아담**이 도래하기 5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밀려났다.

5. **황인종.** **중국** 사람들은 동부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면서 잘 정착했다. 그들의 가장 진보된 정착지는, **티벳** 인접 지역의 현대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했다.

78.1.1 (868.3) Although the minds and morals of the races were at a low level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physical evolution had gone on quite unaffected by the exigencie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Adam's contribution to the biologic status of the races, notwithstanding the partial failure of the undertaking, enormously upstepped the people of Urantia.

78.1.2 (868.4) Adam and Eve also contributed much that was of value to the social, moral, and intellectual progress of mankind; civilization was immensely quickened by the presence of their offspring. But thir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world at large possessed little culture. Certain centers of civilization existed here and there, but most of Urantia languished in savagery.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was as follows:

78.1.3 (868.5) 1. *The violet race — Adamites and Adamsonites.* The chief center of Adamite culture was in the second garden, located in the triangl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this was indeed the cradle of Occidental and Indian civilizations. The secondary or northern center of the violet race was the Adamsonite headquarters, situated east of the southern shore of the Caspian Sea near the Kopet mountains. From these two centers there went forth to the surrounding lands the culture and life plasm which so immediately quickened all the races.

78.1.4 (868.6) 2. *Pre-Sumerians and other Nodites.* There were also present in Mesopotamia, near the mouth of the rivers, remnants of the ancient culture of the days of Dalamatia. With the passing millenniums, this group became thoroughly admixed with the Adamites to the north, but they never entirely lost their Nodite traditions. Various other Nodite groups that had settled in the Levant were, in general, absorbed by the later expanding violet race.

78.1.5 (869.1) 3. *The Andonites* maintained five or six fairly representative settlements to the north and east of the Adamson headquarters. They we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urkestan, while isolated islands of them persisted throughout Eurasia, especially in mountainous regions. These aborigines still held the northlands of the Eurasian continent, together with Iceland and Greenland, but they had long since been driven from the plains of Europe by the blue man and from the river valleys of farther Asia by the expanding yellow race.

78.1.6 (869.2) 4. *The red man* occupied the Americas, having been driven out of Asia over fifty thousand years before the arrival of Adam.

78.1.7 (869.3) 5. *The yellow race.* The Chinese peoples were well established in control of eastern Asia. Their most advanced settlements were situated to the northwest of modern China in

6. 청인종. 청색인은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중심지는 지중해 분지의 비옥한 유역과 유럽 북서부에 자리 잡았다.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한 것은 청색인의 문화를 크게 뒤처지게 했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 청색인은 유라시아의 진화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과 탐구심이 강했다.

7. 드라비다인 이전의 인도. 인도에 있었던 인종들--곧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지만, 특히 녹색, 주황색, 및 흑인종--의 복잡한 혼합이 외곽 지역의 문화보다 약간 높은 문화를 유지하게 했다.

8. 사하라 문명. 남색인종의 우수한 요소들이, 현재의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이룬 곳에서, 그들의 나뭇으로 가장 앞선 진보를 이룩했다. 이 남색_검은색 집단은, 사라진 주황인종과 녹색인종의 광범한 혈통을 지녔다.

9. 지중해 분지. 인도를 제외하고, 피가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이, 현재 지중해 분지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북쪽에서 온 청색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이 여기서 마주쳤고, 동쪽에서 온 노족속 및 아담족속과 섞였다.

이것이 약 2만 5천 년 전, 보라색 인종의 엄청난 확장이 시작되기 이전{以前}에 세상의 모습이 었다. 미래의 문명을 위한 가능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의 두 번째 동산에 숨어 있었다. 아시아 남서부인 이곳에, 거대한 문명의 잠재력, 즉 달라마시아 시대와 아담 시대에서 보존돼 온 개념과 이상{理想}을 온 세계에 퍼뜨릴 가능성이 존재했다.

아담과 이브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강력한 후손을 남겼으며,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天上}의 관찰자들은, 과오를 범한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게 될지 몹시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렸다.

2. 두 번째 동산의 아담족속

아담의 자손은,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강들 근처에서 수고했는데, 남쪽으로 물 대기와 홍수_예방 문제를 해결하고, 북쪽으로는 방어를 튼튼하게 하면서, 첫 에덴의 영화로운 전통을 보존하려고 애썼다.

두 번째 동산의 통솔력에서 드러났던 영웅적 자질은, 유란시아의 역사에서 놀랍고 영감 주는 서사시 가운데 하나다. 뛰어난 이 혼들은, 아담의 사명이 가졌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주위를 둘러싼 부족들 세

regions bordering on Tibet.

78:1.8 (869.4) 6. *The blue race.* The blue men were scattered all over Europe, but their better centers of culture were situated in the then fertile valleys of the Mediterranean basin and in northwestern Europe. Neanderthal absorption had greatly retarded the culture of the blue man, but he was otherwise the most aggressive, adventurous, and exploratory of all the evolutionary peoples of Eurasia.

78:1.9 (869.5) 7. *Pre-Dravidian India.* The complex mixture of races in India — embracing every race on earth, but especially the green, orange, and black — maintained a culture slightly above that of the outlying regions.

78:1.10 (869.6) 8. *The Sahara civilization.* The superior elements of the indigo race had their most progressive settlements in what is now the great Sahara desert. This indigo-black group carried extensive strains of the submerged orange and green races.

78:1.11 (869.7) 9. *The Mediterranean basin.* The most highly blended race outside of India occupied what is now the Mediterranean basin. Here blue men from the north and Saharans from the south met and mingled with Nodites and Adamites from the east.

78:1.12 (869.8) This was the picture of the world prior to the beginnings of the great expansions of the violet race, about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hope of future civilization lay in the second garden between the rivers of Mesopotamia. Here in southwestern Asia there existed the potential of a great civilization, the possibility of the spread to the world of the ideas and ideals which had been salvaged from the days of Dalamatia and the times of Eden.

78:1.13 (869.9) Adam and Eve had left behind a limited but potent progeny, and the celestial observers on Urantia waited anxiously to find out how these descendants of the erring Material Son and Daughter would acquit themselves.

2.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78:2.1 (869.10) For thousands of years the sons of Adam labored along the rivers of Mesopotamia, working out their irrigation and flood-control problems to the south, perfecting their defenses to the north, and attempting to preserve their traditions of the glory of the first Eden.

78:2.2 (869.11) The heroism displayed in the leadership of the second garden constitutes one of the amazing and inspiring epics of Urantia's history. These splendid souls never wholly lost sight of the purpose of the Adamic mission, and

력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동시에, 가장 빼어난 아들과 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종족들에게 꾸준히 사자{使者}로 파견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했다. 어떤 때에는 이런 확장이 본고장의 문화를 고갈시키기도 했지만, 뛰어난 이 민족은 항상 스스로 회복시키곤 했다.

아담족속의 문명, 사회, 및 문화적 상태는, **우란시아**에 있는 진화 인종들의 일반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오직 **반**과 **아마돈**의 옛 정착지들, 그리고 **아담선족속** 가운데서만, 어느 정도 비교될만한 문명이 존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의 문명은 인위적 구조였으며--곧 **진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런 진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퇴보될 수밖에 없었다.

아담은 지적이고 영적인 위대한 문명을 남겼지만, 그 문명은 기계 장치에서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유용한 천연자원, 선천적 특별재능, 그리고 창의적 성과를 보증할만한 충분한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문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보라색 인종의 문명은, **아담**의 현존과 첫 **에덴**의 전통에 기초를 뒀다. **아담**이 죽은 후에,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전통이 희미하게 되자, **아담족속**의 문화 수준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수준과, 그리고 보라색 인종의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문화 수용력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까지 퇴보했다.

그러나 **아담족속**은 기원전 약 19,000년까지 실제 국가를 이뤘고, 인구는 45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미 수백만 명의 자손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낸 상태였다.

3. 아담족속의 초기 확장

보라색 인종은, 평화를 수호하는 **에덴**의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간직했는데,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이 오랫동안 지연됐음을 이것이 설명해 준다. 인구 팽창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초과되는 숫자의 주민을 다른 인종들에게 선생으로 파견했다. 이런 초기 이주{移住}의 문화적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아담족속**의 선생, 상인{商人}, 및 탐험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생물학적으로 활기를 띠게 됐다.

아담족속 가운데 더리는 일찍이 서쪽으로 여행해서 **나일** 강 지역에 이르렀고;더리는 **아시아**로 들어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후대의 대량 이동은 북쪽으로 광범하게 이뤄졌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이뤄졌다. 그것은 대부분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이뤄졌는데, 더 많은 숫자가 북쪽으로 이동했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돌아서 **카스피해**를 지나 **유럽**으로 들어갔다.

therefore did they valiantly fight off the influences of the surrounding and inferior tribes while they willingly sent forth their choicest sons and daughters in a steady stream as emissaries to the races of earth. Sometimes this expansion was depleting to the home culture, but always these superior peoples would rehabilitate themselves.

78:2.3 (870.1) The civilization, society, and cultural status of the Adamites were far above the general level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Only among the old settlements of Van and Amadon and the Adamsonites was there a civilization in any way comparable. But the civilization of the second Eden was an artificial structure — *it had not been evolved* — and was therefore doomed to deteriorate until it reached a natural evolutionary level.

78:2.4 (870.2) Adam left a great intellectual and spiritual culture behind him, but it was not advanced in mechanical appliances since every civilization is limited by available natural resources, inherent genius, and sufficient leisure to insure inventive fruition. The civilization of the violet race was predicated on the presence of Adam and on the traditions of the first Eden. After Adam's death and as these traditions grew dim through the passing millenniums, the cultural level of the Adamites steadily deteriorated until it reached a state of reciprocal balance with the status of the surrounding peoples and the naturally evolving cultural capacities of the violet race.

78:2.5 (870.3) But the Adamites were a real nation around 19,000 B.C., numbering four and a half million, and already they had poured forth millions of their progeny into the surrounding peoples.

3. EARLY EXPANSIONS OF THE ADAMITES

78:3.1 (870.4) The violet race retained the Edenic traditions of peacefulness for many millenniums, which explains their long delay in making territorial conquests. When they suffered from population pressure, instead of making war to secure more territory, they sent forth their excess inhabitants as teachers to the other races. The cultural effect of these earlier migrations was not enduring, but the absorption of the Adamite teachers, traders, and explorers was biologically invigorating to the surrounding peoples.

78:3.2 (870.5) Some of the Adamites early journeyed westward to the valley of the Nile; others penetrated eastward into Asia, but these were a minority. The mass movement of the later days was extensively northward and thence westward. It was, in the main, a gradual but unremitting northward push, the greater number making their way north and then circling westward around the Caspian Sea into Europe.

약 2만 5천 년 전에, **아담족속**의 좀 더 순수한 요소들 가운데 다수가, 북쪽으로 집단 이주한 자들에게서 잘 유지됐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아담**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것은 **투르케스탄**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인종들, 특히 **노족속**과 완전히 섞이기까지 계속됐다. 순수한 핏줄의 보라색 민족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유럽**이나 **아시아**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기원전 약 30,000년부터 10,000년까지, 신기원을 이루는 인종 혼합이 남서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했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은 씩씩하고 활기찬 민족이었다. **인도** 북서쪽 지역에서, **반** 시절의 문화가 많이 유지됐다. 이 정착지들보다 더 북쪽에서는, 초기 **안돈족속**의 최고 문화가 보존됐다. 그리고 문화와 문자를 가진 우수한 이 두 종족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담족속**에게 흡수됐다. 이런 혼합은 많은 새 관념을 수용하도록 이끌었는데; 그것이 문명의 진보를 촉진시켰고, 예술, 과학, 및 사회적 문화의 모든 국면을 크게 진보시켰다.

기원전 15,000년경에, **아담족속**의 초기 이주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아담** 후손이 **유럽**과 **아시아**에 이미 존재했으며, 심지어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많았다. 그들은 이미 **유럽**의 청인종에 대체로 스며든 상태였다. **노족속**과 **안돈족속** 그리고 홍색 및 황색 **상익** 인종들과 섞인 **아담족속**으로 축적된 거대한 무리가, 지금 **러시아**와 **투르케스탄**이라고 불리는 땅의 광활한 남부 지대 전체를 두루 차지했다. 남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은, 극소수의 **아담** 혈통과 함께, **안돈족속**과 --주황색, 녹색, 및 남색-- **상익** 민족들의 혼혈 인종이 장악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와 중앙-동부 **유럽** 땅은, 대체로 **안돈족속**에 해당하는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도래한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보충된, 피가 섞인 유색 인종이 **이집트**를 차지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이어받을 준비를 갖췄다. 검은색 민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홍인종처럼, 사실상 고립됐다.

사하라 문명은 이미 가뭄으로 붕괴됐고, **지중해** 분지 문명은 홍수로 붕괴됐다. 청인종은 아직 진보된 문화로 발전하지 못했다. **안돈족속**은 여전히 **북극** 및 중앙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녹색과 주황인종은 이미 그렇게 멸절된 상태였다. 남색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거기서 서서히 그러나 오래-계속되는 인종 퇴보를 겪었다.

인도에 있는 민족들은 진보되지 않는 문명과 함께 정체된 상태였으며; 황색인은 중앙 **아시아**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으며; 갈색인은 **태평양** 연안 섬들에서 아직 문명을 꽃피우지

78:3.3 (870.6) About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many of the purer elements of the Adamites were well on their northern trek. And as they penetrated northward, they became less and less Adamic until, by the times of their occupation of Turkestan, they had become thoroughly admixed with the other races, particularly the Nodites. Very few of the pure-line violet peoples ever penetrated far into Europe or Asia.

78:3.4 (870.7) From about 30,000 to 10,000 B.C. epoch-making racial mixtures were taking place throughout southwestern Asia. The highland inhabitants of Turkestan were a virile and vigorous people. To the northwest of India much of the culture of the days of Van persisted. Still to the north of these settlements the best of the early Andonites had been preserved. And both of these superior races of culture and character were absorbed by the northward-moving Adamites. This amalgamation led to the adoption of many new ideas; it facilitated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and greatly advanced all phases of art, science, and social culture.

78:3.5 (871.1) As the period of the early Adamic migrations ended, about 15,000 B.C., there were already more descendants of Adam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ven than in Mesopotamia. The European blue races had been largely infiltrated. The lands now called Russia and Turkestan were occupied throughout their southern stretches by a great reservoir of the Adamites mixed with Nodites, Andonites, and red and yellow Sangiks. Souther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fringe were occupied by a mixed race of Andonite and Sangik peoples — orange, green, and indigo — with a sprinkling of the Adamite stock. Asia Minor and the central-eastern European lands were held by tribes that were predominantly Andonite.

78:3.6 (871.2) A blended colored race, about this time greatly reinforced by arrivals from Mesopotamia, held forth in Egypt and prepared to take over the disappearing culture of the Euphrates valley. The black peoples were moving farther south in Africa and, like the red race, were virtually isolated.

78:3.7 (871.3) The Saharan civilization had been disrupted by drought and that of the Mediterranean basin by flood. The blue races had, as yet, failed to develop an advanced culture. The Andonites were still scattered over the Arctic and central Asian regions. The green and orange races had been exterminated as such. The indigo race was moving south in Africa, there to begin its slow but long-continued racial deterioration.

78:3.8 (871.4) The peoples of India lay stagnant, with a civilization that was unprogressing; the yellow man was consolidating his holdings in central Asia; the brown man had not yet begun his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인종 분포는, 광범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안드족속** 시대의 **유란시아** 문명을 개시하기 위한 세계적 무대를 설치했다. 이런 초기 이주(移住)는, 기원전 25,000년에서 15,000년까지 약 1만 년 동안 계속됐다. 후대(後代)의 이주, 즉 **안드족속**의 이주는, 기원전 15,000년에서 6000년까지 계속됐다.

아담족속의 초기 인파가 **유라시아**를 지나가기까지 무척 오랜 세월이 걸렸으므로, 그들의 문화는 이동하는 도중에 크게 손실됐다. 오직 후대의 **안드족속**만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무리 먼 지역까지라도 **에덴** 문화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빨리 이동했다.

4. 안드족속

안드족속은, 순수 혈통의 보라색 인종과 **놋족속** 그리고 여러 진화 민족이 1차로 섞인 인종이다. 일반적으로, **안드족속**은 현대의 인종들보다 **아담**의 피가 훨씬 많이 섞여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안드족속**이라는 말은 주로, 인종적 유전형질 중에서 8분의 1내지 6분의 1을 보라색 인종에서 받은 민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의 **유란시아인**은, 심지어 북쪽의 백인종마저, 이 비율보다 훨씬 적은 **아담**의 피를 지니고 있다.

가장 초기의 **안드족속** 민족은, 2만 5천 년보다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 근처 지역에서 기원됐고, **아담족속**과 **놋족속**의 혼혈로 구성됐다. 두 번째 동산은, 보라색 피가 점차 줄어드는 동심원(同心圓)으로 둘러싸였고, **안드족속** 인종의 탄생은, 이 인종 용광로 주변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이주하는 **아담족속**과 **놋족속**이 **투르케스탄**의 비옥한 지역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곧 우수한 주민과 혼합됐고, 그 결과로 생긴 인종 혼합은 **안드족속** 유형을 북쪽으로 확대시켰다.

안드족속은,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 이후로 **유란시아**에 나타난 혈통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혈통이었다. 그들은 **아담족속**과 **놋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가장 수준 높은 유형 대부분을 소유했고, 나중에는 황색인, 청색인, 및 녹색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종족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이 초기 **안드족속**은 **아리아인**이 아니었으며, **아리아인**의 선조였다. 그들은 백인종도 아니었으며, 백인종의 선조였다. 그들은 **서양** 민족이 아니었고, **동양** 민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소위 백인종 혼혈에게, **코카소이드**라고 알려진 일반화된 동질성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안드족속** 유전형질이였다.

보라색 인종 중에서 더 순수한 혈통들은 평화

civilization on the near-by islands of the Pacific.

78:3.9 (871.5) These racial distributions, associated with extensive climatic changes, set the world stage for the inauguration of the Andite era of Urantia civilization. These early migrations extended over a period of ten thousand years, from 25,000 to 15,000 B.C. The later or Andite migrations extended from about 15,000 to 6000 B.C.

78:3.10 (871.6) It took so long for the earlier waves of Adamites to pass over Eurasia that their culture was largely lost in transit. Only the later Andites moved with sufficient speed to retain the Edenic culture at any great distance from Mesopotamia.

4. THE ANDITES

78:4.1 (871.7) The Andite races were the primary blends of the pure-line violet race and the Nodites plus the evolutionary peoples. In general, Andites should be thought of as having a far greater percentage of Adamic blood than the modern races. In the main, the term Andite is used to designate those peoples whose racial inheritance was from one-eighth to one-sixth violet. Modern Urantians, even the northern white races, contain much less than this percentage of the blood of Adam.

78:4.2 (871.8) The earliest Andite peoples took origin in the regions adjacent to Mesopotamia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and consisted of a blend of the Adamites and Nodites. The second garden was surrounded by concentric circles of diminishing violet blood, and it was on the periphery of this racial melting pot that the Andite race was born. Later on, when the migrating Adamites and Nodites entered the then fertile regions of Turkestan, they soon blended with the superior inhabitants, and the resultant race mixture extended the Andite type northward.

78:4.3 (872.1) The Andites were the best all-round human stock to appear on Urantia since the days of the pure-line violet peoples. They embraced most of the highest types of the surviving remnants of the Adamite and Nodite races and, later, some of the best strains of the yellow, blue, and green men.

78:4.4 (872.2) These early Andites were not Aryan; they were pre-Aryan. They were not white; they were pre-white. They were neither an Occidental nor an Oriental people. But it is Andite inheritance that gives to the polyglot mixture of the so-called white races that generalized homogeneity which has been called Caucasoid.

78:4.5 (872.3) The purer strains of the violet race had

를 추구하는 **아담** 전통을 간직했는데, 이것은 초기 인종 이동이 어떻게 평화로운 이주 환경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아담족속**이 **노족속** 혈통들과 결합하자,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인종이 됐고, 그들의 **안드족속** 후손은, 그 시대와 그 후로 오랫동안, 전에 **유라시아**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능숙하고 영리한 군사 전문가들이 됐다.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인의 이동은 군사적 성격이 점점 더 강해졌고, 실제 정복활동에 더 가까워졌다.

이 **안드족속**은 모험을 좋아했고, 방랑하는 성향이 있었다. **상익** 또는 **안돈족속** 혈통의 증가가, 그들을 안정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후대 자손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멀리 떨어진 마지막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멈춘 적이 없었다.

5. 안드족속의 이주

두 번째 동산의 문화가 2만 년 동안 지속됐지만, 그것은 기원전 약 15,000년까지 꾸준한 퇴보를 겪었는데, 이때 **셀족속** 제사장체제의 부활과 **아모사드**의 지도력이 찬란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후대에 **유라시아**에 퍼진 문명의 거대한 물결은, **아담족속**이 주변에 있는 혼합된 **노족속**과 광대하게 합쳐져서 **안드족속**을 형성한 결과로 생긴, **동산**의 위대한 문예부흥에 뒤이어 즉시 퍼졌다.

이 **안드족속**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새롭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장**{新疆} 전역{全域}까지 **안드족속** 문화가 지배했고, **유럽**을 향한 끊임없는 이주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대체됐다. 그러나 혼합된 **아담** 후손이 마지막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안드족속**을 **메소포타미아** 고유종족이라 부르는 것이 거의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무렵에 두 번째 동산의 인종들도 너무 피가 섞인 상태여서, 더 이상 **아담족속**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투르케스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도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후대의 **안드족속** 기마병{騎馬兵}으로 인해, 끊임없이 회복됐고 힘을 얻었다. 소위 **아리아인**의 원천 언어가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던 **안돈족속** 방언과 **아담선족속**의 언어 및 후대 **안드족속** 언어의 혼합물이었다. 현대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는, **유럽**, **인도**, 및 **메소포타미아** 평원 윗부분을 정복한 중앙 **아시아**의 이 부족들이 사용하던 초기 언어에서 유래했다. 고대의 이 언어는, 소위 **아리아** 어족{語族}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유사성을, **서양**의 여러 언어에 제공했다.

기원전 12,000년이 되자, 세상에 있는 전체 **안드족속** 혈통의 4분의 3이 **유럽**의 북부와 동부에

retained the Adamic tradition of peace-seeking, which explains why the earlier race movements had been more in the nature of peaceful migrations. But as the Adamites united with the Nodite stocks, who were by this time a belligerent race, their Andite descendants became, for their day and age, the most skillful and sagacious militarists ever to live on Urantia. Thenceforth the movements of the Mesopotamians grew increasingly military in character and became more akin to actual conquests.

78:4.6 (872.4) These Andites were adventurous; they had roving dispositions. An increase of either Sangik or Andonite stock tended to stabilize them. But even so, their later descendants never stopped until they had circumnavigated the globe and discovered the last remote continent.

5. THE ANDITE MIGRATIONS

78:5.1 (872.5) For twenty thousand years the culture of the second garden persisted, but it experienced a steady decline until about 15,000 B.C., when the regeneration of the Sethite priesthood and the leadership of Amosad inaugurated a brilliant era. The massive waves of civilization which later spread over Eurasia immediately followed the great renaissance of the Garden consequent upon the extensive union of the Adamites with the surrounding mixed Nodites to form the Andites.

78:5.2 (872.6) These Andites inaugurated new advances throughout Eurasia and North Africa. From Mesopotamia through Sinkiang the Andite culture was dominant, and the steady migration toward Europe was continuously offset by new arrivals from Mesopotamia. But it is hardly correct to speak of the Andites as a race in Mesopotamia proper until near the beginning of the terminal migrations of the mixed descendants of Adam. By this time even the races in the second garden had become so blended that they could no longer be considered Adamites.

78:5.3 (872.7) The civilization of Turkestan was constantly being revived and refreshed by the newcomers from Mesopotamia, especially by the later Andite cavalymen. The so-called Aryan mother tongue was in process of formation in the highlands of Turkestan; it was a blend of the Andonic dialect of that region with the language of the Adamsonites and later Andites. Many modern languages are derived from this early speech of these central Asian tribes who conquered Europe, India, and the upper stretches of the Mesopotamian plains. This ancient language gave the Occidental tongues all of that similarity which is called Aryan.

78:5.4 (872.8) By 12,000 B.C. three quarters of the Andite stock of the world was resident in northern

살았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후대의 최종적 대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주하는 이 마지막 무리의 65 퍼센트가 **유럽**으로 들어갔다.

안드족속은 **유럽**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북부 **중국**과 **인도**까지 이주했고, 동시에 많은 무리가, 선교사, 선생, 및 상인(商人)으로서 땅 끝까지 퍼졌다. 그들은 **사하라**의 **상익** 민족 중에서 북부 지역 집단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나일** 강 상류 지역 남쪽으로는 선생과 상인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중에는, 혼합된 **안드족속** 및 **이집트인**이, 적도보다 훨씬 밑으로 **아프리카**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서 내려갔지만, **마다가스카르**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 **안드족속**은, **인도**에서 소위 **드라비다인**, 그리고 나중에는 정복자 **아리아인**이었으며, 중앙 **아시아**에서는 **우랄알타이** 어족 조상을 엄청나게 증진시켰다. 이 인종 가운데 다수는 **신장**과 **티벳**을 지나는 양쪽 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후대 **중국인** 혈통들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더해줬다. 때로는 작은 집단들이, **일본**, **대만**, **동인도 제도**, **중국** 남부 등으로 여행했고, 매우 적은 무리들이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남부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이 인종 132명이 작은 배들을 나눠 타고 **일본**을 떠나서, 결국 **남아메리카**에 도착했고,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과 결혼함으로써, 후대에 **잉카** 제국 통치자들의 조상을 설립했다. 그들은 쉬운 중간지점, 즉 그 항로(航路) 도중에 발견되는 수많은 섬 위에 머물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다. **폴리네시아 군도**(群島)는 현재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고 면적도 훨씬 넓었으며, 이 **안드족속** 항해자들은, 따라오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여행 도중에 많은 원주민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변경시켰다. **안드족속**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들에서, 번성하는 많은 문명 중심지가 자라났다. **이스터 섬**은, 사라진 이 집단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 및 경영 중심지역할을 오래 유지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항해한 많은 **안드족속** 가운데 132명 외에는, 아무도 **아메리카** 본토에 이르지 못했다.

안드족속의 이주와 정복은, 마지막 분산(分散)이 발생한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까지 계속됐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그들은 본거지의 생물학적 보존물을 계속 고갈(枯渴)시켰고, 한편 주변의 민족들을 현저히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각 나라마다, 유머, 예술, 모험, 음악, 및 제조 기술을 증진시켰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이는 재주가 있었고 농업 전문가였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대개 옛 인종들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풍습이 개선됐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유럽**, **인도**, **중국**,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and eastern Europe, and when the later and final exodus from Mesopotamia took place, sixty-five per cent of these last waves of emigration entered Europe.

78:5.5 (873.1) The Andites not only migrated to Europe but to northern China and India, while many groups penetrated to the ends of the earth as missionaries, teachers, and traders. They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northern groups of the Saharan Sangik peoples. But only a few teachers and traders ever penetrated farther south in Africa than the headwaters of the Nile. Later on, mixed Andites and Egyptians followed down both the east and west coasts of Africa well below the equator, but they did not reach Madagascar.

78:5.6 (873.2) These Andites were the so-called Dravidian and later Aryan conquerors of India; and their presence in central Asia greatly upstepped the ancestors of the Turanians. Many of this race journeyed to China by way of both Sinkiang and Tibet and added desirable qualities to the later Chinese stocks. From time to time small groups made their way into Japan, Formosa, the East Indies, and southern China, though very few entered southern China by the coastal route.

78:5.7 (873.3) One hundred and thirty-two of this race, embarking in a fleet of small boats from Japan, eventually reached South America and by intermarriage with the natives of the Andes established the ancestry of the later rulers of the Incas. They crossed the Pacific by easy stages, tarrying on the many islands they found along the way. The islands of the Polynesian group were both more numerous and larger than now, and these Andite sailors, together with some who followed them, biologically modified the native groups in transit. Many flourishing centers of civilization grew up on these now submerged lands as a result of Andite penetration. Easter Island was long a religious and administrative center of one of these lost groups. But of the Andites who navigated the Pacific of long ago none but the one hundred and thirty-two ever reached the mainland of the Americas.

78:5.8 (873.4) The migratory conquests of the Andites continued on down to their final dispersions, from 8000 to 6000 B.C. As they poured out of Mesopotamia, they continuously depleted the biologic reserves of their homelands while markedly strengthening the surrounding peoples. And to every nation to which they journeyed, they contributed humor, art, adventure, music, and manufacture. They were skillful domesticators of animals and expert agriculturists. For the time being, at least, their presence usually improved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actices of the older races. And so the culture of Mesopotamia quietly spread out over Europe, India, China, northern Africa, and the Pacific Islands.

6. 안드족속의 마지막 분산

메소포타미아에서 퍼져 나가는 마지막 세 번의 물결이, 기원전 8000년부터 6000년 사이에 있었다. 세 차례의 이 문화 대이동{大移動} 물결은, 동쪽으로는 고지대 부족들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평야지대 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주변 지역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향으로 마지막 이주를 단행했다:

65퍼센트는 **카스피 해** 바닷길로 **유럽**에 들어 가서, 새로 등장하는 백인종--곧 청색인과 초기 **안드족속**의 혼혈--을 정복했고 그들과 섞였다.

셀족속 제사장 가운데 큰 집단을 포함해서, 10퍼센트는 동쪽으로 이동했고, **엘람** 고지대를 통과해서 **이란** 평원과 **투르크스탄**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북쪽 지역에서 온 **아리아** 동족{同族}들과 함께 **인도**로 몰려갔다.

메소포타미아인 중에서 10퍼센트가, 북쪽으로 이주하던 중에 동쪽으로 돌아서 **신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드족속** 황색인 주민과 섞였다. 이런 인종적 결합의 결과로 태어난 유능한 자손 대부분이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갔고, 황인종 중에서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즉시 개선하는 데 많이 기여했다.

도피한 이 **안드족속** 가운데 10퍼센트가, **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집트**로 들어갔다.

안드족속 중에서 5퍼센트는, 열등한 이웃 부족과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 근처 해변 지역의 매우 우수한 문화를 유지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많은 우수한 **노트족속**과 **아담족속** 종족들 가운데 생존자를 대표했다.

기원전 6000년경에 **안드족속**은 이 지역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주변의 **상익** 인종들 및 **소아시아**의 **안돈족속**과 크게 섞인 그들의 후손이, 거기서 훨씬 후대에 북쪽과 동쪽을 침입한 자들에 대항해서 싸웠다.

두 번째 동산의 문화 시대는, 주변에 있는 열등한 혈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종말을 맞이했다. 문명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나일** 강과 **지중해** 섬들에 도달했고, 거기서 계속 번성하고 발전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메소포타미아** 근원지가 퇴락{頹落}하게 됐다. 그리고 제지받지 않고 열등한 민족들이 이렇게 유입된 것은, 북방 야만인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나중에 정복하도록 길을 닦아줬으며, 그들은 남아있는 유능한 혈통을 몰아냈다. 심지어 후기 시대에도, 문화를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친 이 침

6. THE LAST ANDITE DISPERSIONS

78:6.1 (873.5) The last three waves of Andites poured out of Mesopotamia between 8000 and 6000 B.C. These three great waves of culture were forced out of Mesopotamia by the pressure of the hill tribes to the east and the harassment of the plainsmen of the west. The inhabitants of the Euphrates valley and adjacent territory went forth in their final exodus in several directions:

78:6.2 (873.6) Sixty-five per cent entered Europe by the Caspian Sea route to conquer and amalgamate with the newly appearing white races — the blend of the blue men and the earlier Andites.

78:6.3 (873.7) Ten per cent, including a large group of the Sethite priests, moved eastward through the Elamite highlands to the Iranian plateau and Turkestan. Many of their descendants were later driven into India with their Aryan brethren from the regions to the north.

78:6.4 (874.1) Ten per cent of the Mesopotamians turned eastward in their northern trek, entering Sinkiang, where they blended with the Andite-yellow inhabitants. The majority of the able offspring of this racial union later entered China and contributed much to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e northern division of the yellow race.

78:6.5 (874.2) Ten per cent of these fleeing Andites made their way across Arabia and entered Egypt.

78:6.6 (874.3) Five per cent of the Andites, the very superior culture of the coastal district about the mouths of the Tigris and Euphrates who had kept themselves free from intermarriage with the inferior neighboring tribesmen, refused to leave their homes. This group represented the survival of many superior Nodite and Adamite strains.

78:6.7 (874.4) The Andites had almost entirely evacuated this region by 6,000 B.C., though their descendants, largely mixed with the surrounding Sangik races and the Andonites of Asia Minor, were there to give battle to the northern and eastern invaders at a much later date.

78:6.8 (874.5) The cultural age of the second garden was terminated by the increasing infiltration of the surrounding inferior stocks. Civilization moved westward to the Nile and the Mediterranean islands, where it continued to thrive and advance long after its fountainhead in Mesopotamia had deteriorated. And this unchecked influx of inferior peoples prepared the way for the later conquest of all Mesopotamia by the northern barbarians who drove out the residual strains of ability. Even in later years the cultured residue still resented the

입자들의 출현에 여전히 분개했다.

presence of these ignorant and uncouth invaders.

7.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절에, 제방 {堤防} 위로 강물이 넘치는 것에 익숙했으며; 이런 주기적 홍수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쪽 지방의 지형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위협했다.

첫 **에덴**이 물에 잠긴 후 수천 년 동안, **지중해** 동쪽 연안 근처의 산맥과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및 북동쪽 산맥이 계속 솟아올랐다. 고원지대의 이런 상승 현상은 기원전 5000년경에 크게 가속화 됐고, 북쪽에 있는 산들 위에 점점 더 엄청나게 쌓이는 눈과 함께, 전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매해 봄마다 전례 없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봄철 홍수는 점점 더 심각하게 돼서, 결국 강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동쪽 고원지대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거의 1,000년 동안 이런 광범한 지역의 이런 대홍수 때문에, 수많은 도시가 실제로 황폐한 상태로 변했다.

거의 5천 년 뒤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머물던 **히브리** 제사장들은, **유대** 민족의 조상을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추적하려고 애썼는데,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수고를 포기하면서, **노아** 홍수 때 온 세계의 사악함 때문에 물에 잠긴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로 바로 연결시키는, 훨씬 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

물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때에 대한 전설은 널리 퍼져있다. 많은 인종이, 과거 어느 시대의 전 세계적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노아**와 방주 그리고 홍수에 대한 **성서** 이야기는, **베벨론** 포로기에 **히브리** 제사장들의 창작품이다.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생겨난 이후로, 전 세계의 홍수가 일어난 적은 전혀 없었다. 지구 표면 전체를 물이 덮었던 유일한 시기는, 육지가 나타나기 전인 **시생대**(始生代) 동안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실제 인물이었으며; **아람**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고, **에렉** 근처 강변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강물이 불어나는 날들을 매년 기록했다. 홍수 철이 다가오면, 그는 그 강 유역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집을 배 모양이 되도록 나무로 지을 것과, 집안에 있는 동물을 매일 밤마다 배에 실으라고 외쳤으므로, 많은 조롱을 받았다. 그는 강 근처에 정착한 이웃에게 해마다 가서, 아주 오랫동안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곤 했다. 마침내 매년 발생하는 홍수 철이 시작됐고, 유별나게 심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강물이 크

7. THE FLOODS IN MESOPOTAMIA

78:7.1 (874.6) The river dwellers were accustomed to rivers overflowing their banks at certain seasons; these periodic floods were annual events in their lives. But new perils threatened the valley of Mesopotamia as a result of progressive geologic changes to the north.

78:7.2 (874.7) For thousands of years after the submergence of the first Eden the mountains about the eastern coast of the Mediterranean and those to the northwest and northeast of Mesopotamia continued to rise. This elevation of the highlands was greatly accelerated about 5000 B.C., and this, together with greatly increased snowfall on the northern mountains, caused unprecedented floods each spring throughout the Euphrates valley. These spring floods grew increasingly worse so that eventually the inhabitants of the river regions were driven to the eastern highlands. For almost a thousand years scores of cities were practically deserted because of these extensive deluges.

78:7.3 (874.8) Almost five thousand years later, as the Hebrew priests in Babylonian captivity sought to trace the Jewish people back to Adam, they found great difficulty in piecing the story together; and it occurred to one of them to abandon the effort, to let the whole world drown in its wickedness at the time of Noah's flood, and thus to be in a better position to trace Abraham right back to one of the three surviving sons of Noah.

78:7.4 (875.1) The traditions of a time when water covered the whole of the earth's surface are universal. Many races harbor the story of a world-wide flood some time during past ages. The Biblical story of Noah, the ark, and the flood is an invention of the Hebrew priesthood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There has never been a universal flood since life was established on Urantia. The only time the surface of the earth was completely covered by water was during those Archeozoic ages before the land had begun to appear.

78:7.5 (875.2) But Noah really lived; he was a wine maker of Aram, a river settlement near Erech. He kept a written record of the days of the river's rise from year to year. He brought much ridicule upon himself by going up and down the river valley advocating that all houses be built of wood, boat fashion, and that the family animals be put on board each night as the flood season approached. He would go to the neighboring river settlements every year and warn them that in so many days the floods would come. Finally a year came in

게 불어남으로써 모든 마을이 휩쓸렸으며; 오직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만, 배 위에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

이 홍수들로 인해 **안드족속** 문명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 홍수 기간이 끝나면서, 두 번째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오직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수메르인** 가운데서, 그 전에 있었던 영화{榮華}의 자취가 약간 남았을 뿐이다.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것의 잔재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에서 그리고 북동쪽 및 북서쪽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훨씬 오래된 **달라마시아** 시대의 흔적은 **페르시아 만**의 물 밑에 있으며, 첫 동산은 **지중해**의 동쪽 끝 부분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8. 수메르인—마지막 안드족속

안드족속의 마지막 분산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의 생물학적 중심 세력이 힘을 잃게 됐을 때, 우수한 이 인종 가운데 소수 집단이, 그 강들의 입구 근처에 있는 고향에 남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이었으며, 기원전 6000년경에, 그들의 문화의 성격은 **노드족속**에 더 가까웠고, **달라마시아**의 고대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태생적으로는 거의 **안드족속**이 돼 있었다. 그럼에도, 해변 지역의 이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마지막 **안드족속**이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인종들은, 이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두개골 유형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런 후대에 이르자 이미 완전히 피가 섞여 있었다.

수사가 매우 번창한 것은, 이 홍수가 있던 시절이었다. 처음에 낮은 곳에 세운 도시가 물에 잠겼으므로, 더 높은 지대에 있었던 두 번째 도시가, 그 당시 공예 기술의 본부로서 낮은 지대의 도시를 대신했다. 나중에 이런 홍수가 줄어들자, **우르**가 도기{陶器} 제조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약 7천 년 전에는 **우르**가 **페르시아 만**에 위치했는데, 강의 퇴적물 때문에 현재의 경계 지역까지 육지가 확장됐다.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덜 입은 것은, 강들을 잘 통제하고 입구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평화롭게 곡식을 재배하던 사람들은, **투르크스탄**과 **이란** 평원에 사는 야만인의 침입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몹시 시달려 왔었다. 그러나 일제히 벌어진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침략은, 고원지대 목초지에 점점 심한 가뭄이 닥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침략은 훨씬 심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 목축업자와 사냥꾼들이, 많은 숫자의 길들여진 말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더 부유한 남쪽 사람들에게 비해서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를 지킬 수

which the annual floods were greatly augmented by unusually heavy rainfall so that the sudden rise of the waters wiped out the entire village; only Noah and his immediate family were saved in their houseboat.

78:7.6 (875.3) These floods completed the disruption of Andite civilization. With the ending of this period of deluge, the second garden was no more. Only in the south and among the Sumerians did any trace of the former glory remain.

78:7.7 (875.4) The remnants of this, one of the oldest civilizations, are to be found in these regions of Mesopotamia and to the northeast and northwest. But still older vestiges of the days of Dalamatia exist under the waters of the Persian Gulf, and the first Eden lies submerged under the eastern end of the Mediterranean Sea.

8. THE SUMERIANS — LAST OF THE ANDITES

78:8.1 (875.5) When the last Andite dispersion broke the biologic backbone of Mesopotamian civilization, a small minority of this superior race remained in their homeland near the mouths of the rivers. These were the Sumerians, and by 6000 B.C. they had become largely Andite in extraction, though their culture was more exclusively Nodite in character, and they clung to the ancient traditions of Dalamatia. Nonetheless, these Sumerians of the coastal regions were the last of the Andites in Mesopotamia. But the races of Mesopotamia were already thoroughly blended by this late date, as is evidenced by the skull types found in the graves of this era.

78:8.2 (875.6) It was during the floodtimes that Susa so greatly prospered. The first and lower city was inundated so that the second or higher town succeeded the lower as the headquarters for the peculiar artcrafts of that day. With the later diminution of these floods, Ur became the center of the pottery industry. About seven thousand years ago Ur was on the Persian Gulf, the river deposits having since built up the land to its present limits. These settlements suffered less from the floods because of better controlling works and the widening mouths of the rivers.

78:8.3 (875.7) The peaceful grain growers of the Euphrates and Tigris valleys had long been harassed by the raids of the barbarians of Turkestan and the Iranian plateau. But now a concerted invasion of the Euphrates valley was brought about by the increasing drought of the highland pastures. And this invasion was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se surrounding herdsmen and hunters possessed large numbers of tamed horses. It was the possession of horses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의 소유였다. 그들은 삼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과 서부 **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로 마지막 문화의 물결이 퍼져 나가게 했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이 사람들 대열에는, **아담선** 혈통 일부를 포함해서, **투르케스탄** 북부 지역의 인종들과 섞인 우수한 **안드족속** 종족들 가운데 다수가 들어 있었다. 북쪽에서 도래한, 덜 진보됐지만 더 강력한 이 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여물{殘餘物}을 재빨리 그리고 기꺼이 흡수했으며, 마침내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정착한 혼합된 민족들로 발전했다. 그들은 사라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국면을 회복시켰는데, 계곡 부족들의 예술과 **수메르인** 문화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들은 세 번째 **바벨** 탑 건설을 피했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그들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야만인 기마병들이 북동쪽으로부터 침입해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을 때, **페르시아** 만에 있는 강 입구 근처에 거주하던 나머지 **안드족속**은 정복하지 않았다. 이 **수메르인**은 우수한 지성과 훨씬 강력한 무기, 그리고 저수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관개{灌溉} 시설로도 사용한 광범한 체계의 군사적 수로{水路}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동일한 집단 종교를 소유했으므로 결합된 민족을 형성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서쪽 이웃 나라들이 고립된 도시_국가들로 갈라진 지 오랜 후에도, 그 종족과 민족적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도시 집단 가운데 어떤 것도, 뭉쳐있는 **수메르인**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쪽 침입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수메르인**을 선생 및 경영자로서 신뢰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과, 서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모든 민족에게 매우 존경받았고, 예술과 산업의 선생으로서, 상업의 지휘자로서, 그리고 집권자로서 추대됐다.

초기 **수메르인** 연방 체제가 무너진 후에, **셀족속** 제사장들의 후손 가운데 변절한자들이 후대{後代}의 도시_국가들을 지배했다. 이 제사장들이 이웃 도시들을 정복했을 때에야, 그들은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 다른 신격{神格}을 경계했기 때문에, 후대의 도시 왕들은 **사르곤** 시대 이전에는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지 못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 자체의 신이 모든 다른 신{神}보다 뛰어나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공동 지도자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시의 사제들이 미약하게 통치하던 이 긴 기간은, **키쉬**의 사제 **사르곤**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

which gave them a tremendous military advantage over their rich neighbors to the south. In a short time they overran all Mesopotamia, driving forth the last waves of culture which spread out over all of Europe, western Asia, and northern Africa.

78:8.4 (876.1) These conquerors of Mesopotamia carried in their ranks many of the better Andite strains of the mixed northern races of Turkestan, including some of the Adamson stock. These less advanced but more vigorous tribes from the north quickly and willingly assimilated the residue of the civilization of Mesopotamia and presently developed into those mixed peoples found in the Euphrates valley at the beginning of historic annals. They quickly revived many phases of the passing civilization of Mesopotamia, adopting the arts of the valley tribes and much of the culture of the Sumerians. They even sought to build a third tower of Babel and later adopted the term as their national name.

78:8.5 (876.2) When these barbarian cavalymen from the northeast overran the whole Euphrates valley, they did not conquer the remnants of the Andites who dwelt about the mouth of the river on the Persian Gulf. These Sumerians were able to defend themselves because of superior intelligence, better weapons, and their extensive system of military canals, which were an adjunct to their irrigation scheme of interconnecting pools. They were a united people because they had a uniform group religion. They were thus able to maintain their racial and national integrity long after their neighbors to the northwest were broken up into isolated city-states. No one of these city groups was able to overcome the united Sumerians.

78:8.6 (876.3) And the invaders from the north soon learned to trust and prize these peace-loving Sumerians as abl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They were greatly respected and sought after as teachers of art and industry, as directors of commerce, and as civil rulers by all peoples to the north and from Egypt in the west to India in the east.

78:8.7 (876.4) After the breakup of the early Sumerian confederation the later city-states were ruled by the apostate descendants of the Sethite priests. Only when these priests made conquests of the neighboring cities did they call themselves kings. The later city kings failed to form powerful confederations before the days of Sargon because of deity jealousy. Each city believed its municipal god to be superior to all other gods, and therefore they refused to subordinate themselves to a common leader.

78:8.8 (876.5) The end of this long period of the weak rule of the city priests was terminated by Sargon, the priest of Kish, who proclaimed himself king and started out on the conquest of the whole of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것이, 각 도시마다 자체의 도시 신(神)과 자체의 예식절차 풍습을 소유하는, 사제가 통치하고 사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_국가들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런 **키쉬** 연방 체제가 깨진 후에,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들 상호간에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던 긴 기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통치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쉬**, **에렉**, **우르**, 및 **수사** 사이에서 여러 번 바뀌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수메르인**은 북부 지역에 있는 **수이족속**과 **구이족속**에게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됐다. 홍수를 막는 제방 위에 세워진, **수메르인**의 수도 **라가쉬**가 함락됐다. **에렉**은 **아카드**가 몰락한 후에 30년 동안 유지됐다. **함무라비** 법전이 완성될 무렵에, **수메르인**은 북쪽에 있는 **셈족속** 반열에 흡수됐고,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족속**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다.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방랑하는 무리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네르족속**은, 피가 섞인 **안돈족속**과 **안드족속** 인종들의 **메소포타미아** 후손 중에서, **카스피** 지역 집단의 최종적 이주를 형성했다.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몰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그 뒤에 일어난 기후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이것이,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에 관한 것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본거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우수한 민족들이 이주(移住)해 나간 것과, 열등한 이웃들이 이주해 들어온 것 때문에, 마침내 침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야만인 기마병들이 그 계곡을 정복하기 전에, **동산**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퍼졌고, 거기서 발효(醱酵)됨으로써 **유란시아**의 20세기 문명이 태어나게 됐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Mesopotamia and adjoining lands. And for the time, this ended the city-states, priest-ruled and priest-ridden, each city having its own municipal god and its own ceremonial practices.

78:8.9 (876.6) After the breakup of this Kish confederation there ensued a long period of constant warfare between these valley cities for supremacy. And the rulership variously shifted between Sumer, Akkad, Kish, Erech, Ur, and Susa.

78:8.10 (877.1) About 2,500 B.C. the Sumerians suffered severe reverses at the hands of the northern Suites and Guites. Lagash, the Sumerian capital built on flood mounds, fell. Erech held out for thirty years after the fall of Akkad. By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Hammurabi the Sumerians had become absorbed into the ranks of the northern Semites, and the Mesopotamian Andites passed from the pages of history.

78:8.11 (877.2) From 2,500 to 2,000 B.C. the nomads were on a rampage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The Nerites constituted the final eruption of the Caspian group of the Mesopotamian descendants of the blended Andonite and Andite races. What the barbarians failed to do to effect the ruin of Mesopotamia, subsequent climatic changes succeeded in accomplishing.

78:8.12 (877.3)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violet race after the days of Adam and of the fate of their homeland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Their ancient civilization finally fell due to the emigration of superior peoples and the immigration of their inferior neighbors. But long before the barbarian cavalymen conquered the valley, much of the Garden culture had spread to Asia, Africa, and Europe, there to produce the ferments which have resulted in the twentieth-century civilization of Urantia.

78:8.13 (877.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79편. 동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 078

유란시아 책

08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79편

동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섹션

소개

1. 투르케스탄의 안드족속
2. 안드족속의 인도 정복
3. 드라비다인의 인도
4. 아리아인의 인도 침입
5. 홍색인과 황색인
6. 중국 문명의 발단
7. 중국에 들어온 안드족속
8. 후대의 중국 문명

소개

아시아가 인류의 모국{母國}이다. **안돈**과 **원타**가 태어난 곳은, 이 대륙의 남부에 있는 어느 반도{半島}였으며; 그들의 후손인 **바도난**이, 지금은 **아프카니스탄**이 된 고원지대에서 원시 문화 중심지를 세웠고, 50만 년 이상 유지됐다. 인류의 이 동부 중심지에서, **안돈족속** 혈통으로부터 **상익** 민족들이 갈라져 나왔고, **아시아**는 그들의 처음 고향이자 첫 사냥터였고 첫 전쟁터였다. 남서부 **아시아**는, **달라마시아인**, **놋족속**, **아담족속**, 및 **안드족속**으로 이어진 문명을 겪었고, 이 지역으로부터 현대 문명의 잠재력이 세계로 퍼져 나갔다.

1. 투르케스탄의 안드족속

거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2만 5천 년이 넘는 동안, **안드족속**은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현저히 많았지만 점점 줄었다. **안드족속**은 **투르케스탄** 저지대로부터 서쪽을 향해 내륙 호수들을 돌

PAPER 79

ANDITE EXPANSION IN THE ORI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ndites of Turkestan
2. The Andite Conquest of India
3. Dravidian India
4. The Aryan Invasion of India
5. Red Man and Yellow Man
6. Dawn of Chinese Civilization
7. The Andites Enter China
8. Later Chinese Civilization

INTRODUCTION

79:0.1 (878.1) ASIA is the homeland of the human race. It was on a southern peninsula of this continent that Andon and Fonta were born; in the highlands of what is now Afghanistan, their descendant Badonan founded a primitive center of culture that persisted for over one-half million years. Here at this eastern focus of the human race the Sangik peoples differentiated from the Andonic stock, and Asia was their first home, their first hunting ground, their first battlefield. Southwestern Asia witnessed the successive civilizations of Dalamatians, Nodites, Adamites, and Andites, and from these regions the potentials of modern civilization spread to the world.

1. THE ANDITES OF TURKESTAN

79:1.1 (878.2) For over twenty-five thousand years, on down to nearly 2000 B.C., the heart of Eurasia was predominantly, though diminishingly, Andite. In the lowlands of Turkestan the Andites made the

아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한편 이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동쪽으로 스며들었다. 동부 투르케스탄(곤신장)은 고대의 통로 역할을 했고, 그보다 미약하기는 했지만 티벳 역시 그런 통로였는데, 거기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이 민족들이 산맥을 넘어, 황색인이 사는 북부 땅으로 들어갔다. 안드족속의 인도 침투는, 투르케스탄 고지대에서 유래되어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란의 목초지역에서 바루키스탄을 통과해 들어갔다. 이런 초기 이주는 결코 정복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안드족속 부족들이 서부 인도와 중국으로 되풀이해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거의 1만 5천 년 동안, 잡다한 안드족속 문명 중심지들이, 신장에 있는 다림 강 분지와 티벳의 고원지대 남부에 유지됐으며, 거기서 안드족속과 안돈족속이 광범하게 섞였다. 다림 계곡은, 변질되지 않은 안드족속 문화의 동쪽 끝 전초기지였다. 그들은 여기서 정착지를 형성했고, 동쪽으로는 진취적인 중국인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안돈족속과, 거래 관계를 이루게 됐다. 당시에 다림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으며; 강우량이 풍부했다. 동쪽으로 고비 지역은 넓게 펼쳐진 목초지였고, 목축업이 점차 농업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자 이 지역 문명이 쇠퇴했지만, 당시에는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쌍벽을 이뤘다.

기원전 8000년경에, 중앙 아시아 고지대가 점점 더 건조해짐으로써, 안드족속은 강변과 해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심해지는 건조 현상 때문에, 나일 강,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 및 황하{黃河} 유역으로 그들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안드족속 문명에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게 됐다. 새로운 계층 사람인 상인{商人}이 많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주하는 안드족속이 기후 조건 때문에 사냥하기 어렵게 됐을 때, 그들은 목축업자가 됨으로써 옛 인종들의 진화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다. 상업과 도시 생활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을 거쳐서 중국과 인도의 강들까지, 상당히 문명화된 부족들이 제조업과 무역에 전념하는 여러 도시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도니아는 중앙 아시아의 상업 중심지가 됐는데, 현재 아쉬카바드라는 도시 근처에 자리 잡았다. 돌, 금속, 나무, 및 도기{陶器}의 교역{交易}이 땅과 바다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건조 현상이, 안드족속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카스피 해 남부와 동부로 대이동 하도록 만들었다. 이주 물결이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바벨론 기마병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중앙 아시아의 심해지는 건조 상태가 인구를 더 감소시켰고, 이 사람들의 호전성을 줄였으며;

westward turning around the inland lakes into Europe, while from the highlands of this region they infiltrated eastward. Eastern Turkestan (Sinkiang) and, to a lesser extent, Tibet were the ancient gateways through which these peoples of Mesopotamia penetrated the mountains to the northern lands of the yellow men. The Andite infiltration of India proceeded from the Turkestan highlands into the Punjab and from the Iranian grazing lands through Baluchistan. These earlier migrations were in no sense conquests; they were, rather, the continual drifting of the Andite tribes into western India and China.

79:1.2 (878.3) For almost fifteen thousand years centers of mixed Andite culture persisted in the basin of the Tarim River in Sinkiang and to the south in the highland regions of Tibet, where the Andites and Andonites had extensively mingled. The Tarim valley was the easternmost outpost of the true Andite culture. Here they built their settlements and entered into trade relations with the progressive Chinese to the east and with the Andonites to the north. In those days the Tarim region was a fertile land; the rainfall was plentiful. To the east the Gobi was an open grassland where the herders were gradually turning to agriculture. This civilization perished when the rain winds shifted to the southeast, but in its day it rivaled Mesopotamia itself.

79:1.3 (878.4) By 8000 B.C. the slowly increasing aridity of the highland regions of central Asia began to drive the Andites to the river bottoms and the seashores. This increasing drought not only drove them to the valleys of the Nile, Euphrates, Indus, and Yellow rivers, but it produced a new development in Andite civilization. A new class of men, the traders, began to appear in large numbers.

79:1.4 (879.1) When climatic conditions made hunting unprofitable for the migrating Andites, they did not follow the evolutionary course of the older races by becoming herders. Commerce and urban life made their appearance. From Egypt through Mesopotamia and Turkestan to the rivers of China and India, the more highly civilized tribes began to assemble in cities devoted to manufacture and trade. Adonia became the central Asian commercial metropolis, being located near the present city of Ashkhabad. Commerce in stone, metal, wood, and pottery was accelerated on both land and water.

79:1.5 (879.2) But ever-increasing drought gradually brought about the great Andite exodus from the lands south and east of the Caspian Sea. The tide of migration began to veer from northward to southward, and the Babylonian cavalymen began to push into Mesopotamia.

79:1.6 (879.3) Increasing aridity in central Asia further operated to reduce population and to render these

북쪽 지역의 강우량이 줄어들으로써, 방랑하던 **안돈족속**이 강제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수많은 **안드족속**이 **투르케스탄**에서 쫓아져 나왔다. 이것이 소위 **아리아인**이 **레반트**와 **인도** 지역으로 들어간 마지막 이동이다. 오랫동안 이뤄진 잡다한 **아담** 후손의 분산이 절정에 달했고, 그러는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태평양** 섬들의 대부분의 민족이, 우수한 이 인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

그리하여, 그들이 **동반구**로 퍼져 나가는 동안,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에 있는 본거지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안드족속**의 이런 광대한 남쪽 이동 때문에 중앙 **아시아**의 **안드족속**이 희귀해져서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후 20세기까지도, **우랄알타이** 어족(語族) 및 **티벳** 민족들 가운데에는 **안드족속** 핏줄의 흔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금발 유형의 사람들이 이를 증거한다. 초기 **중국** 사료(史料)는 **황하**의 평화로운 정착지 북쪽 지역에 붉은 색 머리카락을 가진 유목민이 있었다고 기록했으며, 옛날에 **다림** 분지에서 금발 **안드족속**과 갈색 **몽골족** 유형들이 같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 **아시아 안드족속**의 잠자던 군사적 천재성이 마지막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서기 1200년에 **징기스칸**이 지배하는 **몽골**이, **아시아** 대륙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였다. 그리고 옛 **안드족속**과 마찬가지로, 이 전사(戰士)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전파했다. 그들의 제국이 일찍 무너짐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문화 교류가 오랫동안 연기됐고, **아시아**에서 유일신 개념이 성장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했다.

2. 안드족속의 인도 정복

인도는 **유라시아**의 모든 인종이 섞인 유일한 장소인데, **안드족속**의 침입이 마지막 혈통을 더했다.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서 **상익** 인종이 출현했고, 초기에 **인도 아(亞)**대륙에 들어온 각 종족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섞임으로써, **유라시아**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종족 가운데 가장 잡다한 인종을 낳았다. 고대의 **인도**는, 이주하는 인종들을 붙잡아두는 웅덩이 역할을 했다. 반도의 아래쪽 폭이 전에는 현재보다 약간 좁았으며, **간지스**와 **인더스** 삼각주(三角洲) 대부분은 지난 5만 년 세월의 작품이다.

인도에서 있었던 최초의 인종 혼합은, 이주하는 홍인종과 황인종이 토착민 **안돈족속**과 섞인 것이었다. 이 집단은, 소멸된 동부 녹색 민족들 대부

people less warlike; and when the diminishing rainfall to the north forced the nomadic Andonites southward, there was a tremendous exodus of Andites from Turkestan. This is the terminal movement of the so-called Aryans into the Levant and India. It culminated that long dispersal of the mixed descendants of Adam during which every Asiatic and most of the island peoples of the Pacific were to some extent improved by these superior races.

79:1.7 (879.4) Thus, while they dispersed over the Eastern Hemisphere, the Andites were dispossessed of their homelands in Mesopotamia and Turkestan, for it was this extensive southward movement of Andonites that diluted the Andites in central Asia nearly to the vanishing point.

79:1.8 (879.5) But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there are traces of Andite blood among the Turanian and Tibetan peoples, as is witnessed by the blond types occasionally found in these regions. The early Chinese annals record the presence of the red-haired nomads to the north of the peaceful settlements of the Yellow River, and there still remain paintings which faithfully record the presence of both the blond-Andite and the brunet-Mongolian types in the Tarim basin of long ago.

79:1.9 (879.6) The last great manifestation of the submerged military genius of the central Asiatic Andites was in A.D. 1200, when the Mongols under Genghis Khan began the conquest of the greater portion of the Asiatic continent. And like the Andites of old, these warriors proclaimed the existence of “one God in heaven.” The early breakup of their empire long delayed cultural intercourse between Occident and Orient and greatly handicapped the growth of the monotheistic concept in Asia.

2. THE ANDITE CONQUEST OF INDIA

79:2.1 (879.7) India is the only locality where all the Urantia races were blended, the Andite invasion adding the last stock. In the highlands northwest of India the Sangik races came into existence, and without exception members of each penetrated the subcontinent of India in their early days, leaving behind them the most heterogeneous race mixture ever to exist on Urantia. Ancient India acted as a catch basin for the migrating races. The base of the peninsula was formerly somewhat narrower than now, much of the deltas of the Ganges and Indus being the work of the last fifty thousand years.

79:2.2 (879.8) The earliest race mixtures in India were a blending of the migrating red and yellow races with the aboriginal Andonites. This group was later weakened by absorbing the greater portion of the

분과 많은 숫자의 주황인종을 흡수함으로써 나중에 약화됐고, 청색인과 제한적으로 혼합됨으로써 약하게나마 진보했지만, 많은 숫자의 남색인종과 혼합됨으로써 크게 수난 당했다. 그러나 소위 **인도** 원주민은 도저히 이런 초기 민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은 오히려 남부와 동부 지역에 사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은 초기 **안드족속** 또는 후대에 나타난 **아리아** 동족에게 결코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

기원전 20,000년경에, 서부 **인도** 주민은 이미 **아담**의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유란시아** 역사상 한 민족이 그토록 많은 다른 종족의 혼합으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차 **상익** 종족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오래 전의 이 인종 융광로에서 청색인과 홍색인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은 정말로 재난{災難}이었는데; 1차 **상익** 종족이 더 많았다면, 훨씬 훌륭한 문명이 발생되도록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매우 많이 기여했을 것이다. 전개된 바와 같이, 홍색인은 **아메리카**에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었고, 청색인은 **유럽**에서 흥겹게 살고 있었으며, **아담**의 초기 후손(그리고 후대의 후손 대부분)은,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지, 짙은 색 인종과는 혼합되기를 싫어했다.

기원전 15,000년경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압력이 **투르케스탄**과 **이란**에서 전역으로 확장됐고, 정말로 광범한 **안드족속** 이동이 처음으로 **인도** 쪽으로 일어났다. 열다섯 세기가 넘는 동안, 우수한 이 민족들이 **바루키스탄** 고지대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갔는데, **인더스**와 **간지스** 강 유역으로 퍼져나갔고,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해서 **데칸**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북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안드족속**에 밀려서, 남부와 동부에 있던 열등한 사람들이 쫓겨나 **버마**와 남부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침입자들이 인종 소멸을 당하지 않을 만큼 숫자가 충분치는 않았다.

인도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주로 지형{地形} 문제였는데, 인구 팽창으로 인해 북쪽에서만 붐비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거주지는 더 줄어들었고,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부근에 이주해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다면, 열등한 민족은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우수한 혈통이 훨씬 발전된 문명을 성취했을 것이다.

사실 그랬듯이, 초기의 이 **안드족속** 정복자들은 자신의 주체성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종족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종족을 흡수하는 인파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럼에도, **안드족속**은 기원전 10,000년경에 사라졌지만, 그 민족 대부분은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증진을 이룩했다.

extinct eastern green peoples as well as large numbers of the orange race, was slightly improved through limited admixture with the blue man, but suffered exceedingly through assimilation of large numbers of the indigo race. But the so-called aborigines of India are hardly representative of these early people; they are rather the most inferior southern and eastern fringe, which was never fully absorbed by either the early Andites or their later appearing Aryan cousins.

79:2.3 (880.1) By 20,000 B.C. the population of western India had already become tinged with the Adamic blood, and never in the history of Urantia did any one people combine so many different races. But it was unfortunate that the secondary Sangik strains predominated, and it was a real calamity that both the blue and the red man were so largely missing from this racial melting pot of long ago; more of the primary Sangik strains would have contributed very much toward the enhancement of what might have been an even greater civilization. As it developed, the red man was destroying himself in the Americas, the blue man was disporting himself in Europe, and the early descendants of Adam (and most of the later ones) exhibited little desire to admix with the darker colored peoples, whether in India, Africa, or elsewhere.

79:2.4 (880.2) About 15,000 B.C. increasing population pressure throughout Turkestan and Iran occasioned the first really extensive Andite movement toward India. For over fifteen centuries these superior peoples poured in through the highlands of Baluchistan, spreading out over the valleys of the Indus and Ganges and slowly moving southward into the Deccan. This Andite pressure from the northwest drove many of the southern and eastern inferiors into Burma and southern China but not sufficiently to save the invaders from racial obliteration.

79:2.5 (880.3) The failure of India to achieve the hegemony of Eurasia was largely a matter of topography; population pressure from the north only crowd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southward into the decreasing territory of the Deccan, surrounded on all sides by the sea. Had there been adjacent lands for emigration, then would the inferiors have been crowded out in all directions, and the superior stocks would have achieved a higher civilization.

79:2.6 (880.4) As it was, these earlier Andite conquerors made a desperate attempt to preserve their identity and stem the tide of racial engulfment by the establishment of rigid restrictions regarding intermarriage. Nonetheless, the Andites had become submerged by 10,000 B.C., but the whole mass of the people had been markedly improved by this absorption.

인종 혼합은,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진보하는 문명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항상 유리하지만, 열등한 요소를 지닌 종족 혈통이 우세할 경우에는, 그런 성취가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우세한 혈통이 열등한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자손을 퍼뜨릴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열등한 사람의 자손이 제한 없이 늘어나고, 우수한 사람의 자손이 줄어들면, 문화가 있는 문명은 반드시 자멸{自滅}한다.

안드족속 정복자들이 당시에 실제 숫자보다 3배가 됐거나, 아니면 혼합된 주황색·녹색·남색 주민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3분의 1을 쫓아냈든지 과멸시켰다면, **인도**는 문화가 있는 문명의 세계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가 됐을 것이며, **투르크에스탄**으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간, **메소포타미아인**의 후기 인파를 확실히 더 많이 끌어들이었을 것이다.

3. 드라비다인의 인도

인도를 정복한 **안드족속**과 원주민 혈통의 결합은 결국, **드라비다인**이라고 불리는 잡다한 민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에 있었고 좀 더 순수했던 **드라비다인**은, 문화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녔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안드족속** 유전자가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서 계속 약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만 2천 년 전에 **인도**의 싹트는 문명을 망하게 했다. 그러나 **아담**의 피가 이렇게 적은 양만 주입됐지만, 사회적 발전에서는 괄목할만한 추진을 이룩했다. 이런 혼합 혈통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문명을 즉시 꽃피웠다.

인도를 정복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라비다인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종족 및 문화의 접촉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뱃길과 대상{隊商}행로가 개통되자 이 관계가 회복됐으며, 지난 1만 년 동안,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쪽으로 **중국**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산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서쪽과의 교류가 훨씬 유리했다.

인도에 있는 민족들의 우수한 문화적 및 종교적 성향은, **드라비다인**이 지배한 초기 시대부터 시작됐으며, 일부는 일찍이 있었던 **안드족속**과 후대의 **아리아인**의 침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셀족속** 제사장들이 **인도**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도**의 종교 역사 내내 이어지던 일신교의 가느다란 빛은, 두 번째 동산의 **아담족속**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유래했다.

기원전 16,000년경에, 이미 100명에 이르는 **셀족속** 제사장 일행이 **인도**에 들어갔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에서 종교적 정복을 거의 성취했다. 그러나

79:2.7 (880.5) Race mixture is always advantageous in that it favors versatility of culture and makes for a progressive civilization, but if the inferior elements of racial stocks predominate, such achievements will be short-lived. A polyglot culture can be preserved only if the superior stocks reproduce themselves in a safe margin over the inferior. Unrestrained multiplication of inferiors, with decreasing reproduction of superiors, is unfailingly suicidal of cultural civilization.

79:2.8 (880.6) Had the Andite conquerors been in numbers three times what they were, or had they driven out or destroyed the least desirable third of the mixed orange-green-indigo inhabitants, then would India have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centers of cultural civilization and undoubtedly would have attracted more of the later waves of Mesopotamians that flowed into Turkestan and thence northward to Europe.

3. DRAVIDIAN INDIA

79:3.1 (881.1) The blending of the Andite conquerors of India with the native stock eventually resulted in that mixed people which has been called Dravidian. The earlier and purer Dravidians possessed a great capacity for cultural achievement, which was continuously weakened as their Andite inheritance became progressively attenuated. And this is what doomed the budding civilization of India almost twelve thousand years ago. But the infusion of even this small amount of the blood of Adam produced a marked acceleration in social development. This composite stock immediately produced the most versatile civilization then on earth.

79:3.2 (881.2) Not long after conquering India, the Dravidian Andites lost their racial and cultural contact with Mesopotamia, but the later opening up of the sea lanes and the caravan routes re-established these connections; and at no time within the last ten thousand years has India ever been entirely out of touch with Mesopotamia on the west and China to the east, although the mountain barriers greatly favored western intercourse.

79:3.3 (881.3) The superior culture and religious leanings of the peoples of India date from the early times of Dravidian domination and are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so many of the Sethite priesthood entered India, both in the earlier Andite and in the later Aryan invasions. The thread of monotheism running through the religious history of India thus stems from the teachings of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79:3.4 (881.4) As early as 16,000 B.C. a company of one hundred Sethite priests entered India and very nearly achieved the religious conquest of the western half of that polyglot people. But their

그들의 종교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 5천 년 이내에, **낙원 삼위일체**에 관한 그들의 교리는 화신 {火神}의 삼중적{三重的} 상징으로 퇴화됐다.

그러나 **안드족속**의 이주가 끝나기까지, 7천 년 이상, **인도** 주민의 종교 상태는 세계 대부분의 상태보다 훨씬 높았다. **인도**는, 이 시기 동안에 세계에서 선도적인, 문화, 종교, 철학, 및 상업 문명을 산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안드족속**이 남쪽의 민족들 밑에 완전히 파묻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운명이 아마 실현됐을 것이다.

드라비다의 문화 중심지들은 강 유역에 자리잡았는데, 대개 **인더스**와 **간지스** 지역이었으며, **데칸**에서는 3개의 큰 강물이 **동(東) 가트** 지역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西) 가트**의 해변을 따라서 형성된 정착지들의 탁월성은, 바다를 통해 **수메르**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비다인은, 가장 일찍 도시를 건설하고, 육상{陸上}과 해상{海上}의 광대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민족에 속했다. 기원전 7000년경에 낙타 행렬이 **메소포타미아**의 먼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여행했으며; **드라비다**의 선박은 해안을 따라 활동했는데, **아라비아 해**를 지나서 **페르시아 만**에 있는 **수메르** 도시들까지 이르렀고, 해상에서 모험을 감행하여 **벵골 만**을 지나 **동인도 제도**까지 이르렀다. 이런 해상 여행자와 상인을 통해서, 글 쓰는 기술과 함께 알파벳이 **수메르**에서 수입됐다.

이런 상업 관계는 국제적 문화를 더 다양화시키는 데 기여했고, 도시 생활의 많은 진보와, 심지어 사치품이 일찍부터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중에 나타난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안드족속** 동족이 **상익** 인종에 스며들었던 것을 **드라비다인**의 모습에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잘 증진된 문명은 발견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 제한조건에도, **드라비다인**은 우수한 문명을 건설했다. 그것은 **인도** 전역으로 잘 확산됐고, **데칸** 지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돼 왔다.

4. 아리아인의 인도 침입

안드족속의 두 번째 **인도** 침투는, 기원전 셋째 천년 중간쯤에 거의 500년 동안 일어난 **아리아인** 침입이었다. 이 이주{移住}는, **안드족속**의 고향 **투르케스탄**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것을 가리킨다.

초기 **아리아인** 중심지는 **인도** 북쪽 지역 절반에 산재해 있었는데, 북서부에서 두드러졌다. 이 침입자들은 그 나라의 정복을 결코 끝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이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게 됐는데, **히말라야** 지방을 제외한 반

religion did not persist. Within five thousand years their doctrines of the Paradise Trinity had degenerated into the triune symbol of the fire god.

79:3.5 (881.6) But for more than seven thousand years, down to the end of the Andite migrations, the religious status of the inhabitants of India was far above that of the world at large. During these times India bid fair to produce the leading cultural, religious, philosophic, and commercial civilization of the world. And but for the complete submergence of the Andites by the peoples of the south, this destiny would probably have been realized.

79:3.6 (881.6) The Dravidian centers of culture were located in the river valleys, principally of the Indus and Ganges, and in the Deccan along the three great rivers flowing through the Eastern Ghats to the sea. The settlements along the seacoast of the Western Ghats owed their prominence to maritime relationships with Sumeria.

79:3.7 (881.7) The Dravidians were among the earliest peoples to build cities and to engage in an extensive export and import business, both by land and sea. By 7000 B.C. camel trains were making regular trips to distant Mesopotamia; Dravidian shipping was pushing coastwise across the Arabian Sea to the Sumerian cities of the Persian Gulf and was venturing on the waters of the Bay of Bengal as far as the East Indies. An alphabet, together with the art of writing, was imported from Sumeria by these seafarers and merchants.

79:3.8 (881.8) These commercial relationships greatly contributed to the further diversification of a cosmopolitan culture, resulting in the early appearance of many of the refinements and even luxuries of urban life. When the later appearing Aryans entered India, they did not recognize in the Dravidians their Andite cousins submerged in the Sangik races, but they did find a well-advanced civilization. Despite biologic limitations, the Dravidians founded a superior civilization. It was well diffused throughout all India and has survived on down to modern times in the Deccan.

4. THE ARYAN INVASION OF INDIA

79:4.1 (882.1) The second Andite penetration of India was the Aryan invasion during a period of almost five hundred years in the middle of the third millennium before Christ. This migration marked the terminal exodus of the Andites from their homelands in Turkestan.

79:4.2 (882.2) The early Aryan centers were scattered over the northern half of India, notably in the northwest. These invaders never completed the conquest of the country and subsequently met their undoing in this neglect since their lesser

도 전체를 휩쓸게 됐던 남부의 **드라비다인**에게 흡수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아리아인은 북쪽 지방들을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인종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데칸**에서 그들의 영향은 인종보다는 문화와 종교에 끼친 것이었다. 북부 **인도**의 소위 **아리아인** 핏줄이 더 많이 지속된 것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현존 숫자가 훨씬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정복자, 상인, 및 선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보강됐기 때문이었다. 바로 기원전 1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리아인** 핏줄의 계속적인 침투가 **편잡** 지방으로 이뤄졌는데, 마지막 유입은 **헬라** 민족들의 군사행동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간지스 강 평원에서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이 결국 섞여서 고상한 문화를 창출했고, 이 중심지는, **중국**이 기여{寄與}한 것으로 인해 나중에 북동쪽으로부터 보강됐다.

인도에서는, 민주주의 비슷한 **아리아인** 체제로부터 전체적이고 군주적인 정부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사회 조직이 때때로 번성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독자적인 특색은, 인종의 주체성을 영존시키려는 노력으로 **아리아인**이 설립한, 거대한 사회 신분계층을 끈질기게 고수한 것이었다. 이런 정교한 신분계층 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네 개의 큰 신분계층 가운데,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아리아인** 정복자들이 자신보다 열등한 백성과 인종적으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찮은 노력으로 인해 설립됐다. 그러나 첫째 신분계층인 선생_제사장은 **셀족속**에서 유래했으며; 기원후 20세기의 **브라만**은 두 번째 동산의 제사장들로부터 직계로 내려온 문화적 후손이지만, 그 교훈은 그들의 저명한 조상의 교훈과 크게 다르다.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동산에 있었던 종교의 남아있는 전통에 간직돼있는 그대로, **신격**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만** 사제들은, **아리아인**이 소멸된 후에 **데칸**의 열등한 종교와 갑작스럽게 접촉함으로써 생긴 이교적{異敎的} 타성{惰性}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거의 대부분의 주민은, 미신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열등한 종교들의 속박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따라서 **인도**는 초기 시대에 징조를 보여 왔던 고상한 문명을 일으키지 못했다.

기원전 6세기의 영적 각성이 **인도**에서는 유지되지 못했고, **모하메드교**가 침투하기 전에 이미 소멸됐다. 그러나 언젠가는 더 위대한 **가우타마**가 나타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인도**

numbers made them vulnerable to absorption by the Dravidians of the south, who subsequently overran the entire peninsula except the Himalayan provinces.

79:4.3 (882.3) The Aryans made very little racial impression on India except in the northern provinces. In the Deccan their influence was cultural and religious more than racial. The greater persistence of the so-called Aryan blood in northern India is not only due to their presence in these regions in greater numbers but also because they were reinforced by later conquerors, traders, and missionaries. Right on down to the first century before Christ there was a continuous infiltration of Aryan blood into the Punjab, the last influx being attendant upon the campaigns of the Hellenistic peoples.

79:4.4 (882.4) On the Gangetic plain Aryan and Dravidian eventually mingled to produce a high culture, and this center was later reinforced by contributions from the northeast, coming from China.

79:4.5 (882.5) In India many types of social organizations flourished from time to time, from the semidemocratic systems of the Aryans to despotic and monarchical forms of government. But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society was the persistence of the great social castes that were instituted by the Aryans in an effort to perpetuate racial identity. This elaborate caste system has been preserved on down to the present time.

79:4.6 (882.6) Of the four great castes, all but the first were established in the futile effort to prevent racial amalgamation of the Aryan conquerors with their inferior subjects. But the premier caste, the teacher-priests, stems from the Sethites; the Brahman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are the lineal cultural descendants of the priests of the second garden, albeit their teachings differ greatly from those of their illustrious predecessors.

79:4.7 (882.7) When the Aryans entered India, they brought with them their concepts of Deity as they had been preserved in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religion of the second garden. But the Brahman priests were never able to withstand the pagan momentum built up by the sudden contact with the inferior religions of the Deccan after the racial obliteration of the Aryans. Thus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fell into the bondage of the enslaving superstitions of inferior religions; and so it was that India failed to produce the high civilization which had been foreshadowed in earlier times.

79:4.8 (882.8) The spiritual awakening of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did not persist in India, having died out even before the Mohammedan invasion. But someday a greater Gautama may

사람을 인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은, 진보하지 않는 영적 시각{視覺}의 무감각한 영향력 아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던, 다재다능한 한 민족의 문화적 잠재력이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기초 위에 문화가 얹혀있었지만, 계층만으로는 **아리아인** 문화를 존속시킬 수 없었는데, 이는 종교, 즉 참된 종교가, 인간의 형제관계에 기초된 우수한 문명을 설립하도록 사람들을 재촉하는, 더 높은 에너지의 필수 근원이기 때문이다.

5. 홍색인과 황색인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안드족속**이 더 오래된 진화 민족들을 정복하고 결국 그 속에 파묻힌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부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 **상익**, 특히 홍색인 및 황색인과 관계된다. 이 두 인종은, **유럽**에서 청색인들을 아주 크게 뒤떨어지게 만든 저질{低質}의 **네안데르탈** 혈통과 섞이는 것을 거의 겪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1차 **상익** 유형의 우수한 잠재력을 간직했다.

초기 **네안데르탈인**이 **유라시아** 전체에 퍼지는 동안, 동쪽 주변지역은 저질의 동물 핏줄로 더 많이 오염됐다. 이런 유인원 유형은 다섯 번째 빙하기 때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는데, 바로 그 빙하 때문에 **상익**이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지 못했다. 그리고 홍색인이 **인도** 고원지대를 돌아서 북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홍색인은 북동쪽 **아시아**에 이 유인원 유형의 사람이 없음을 발견했다. 홍인종의 부족 조직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형성됐고, **상익** 인종의 중앙 **아시아** 중심지로부터 처음으로 이주한 인종이었다. 열등한 **네안데르탈** 종족은, 나중에 이주하는 황색 부족들에게 파멸되거나, 아니면 본토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홍색인은, 황색 부족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만 년 동안 동부 **아시아**를 호령했다.

30만 년 보다 더 전에, 황인종 본대{本隊}가 남쪽에서 해안을 따라 이주하여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갔지만, **티벳**으로 이주한 형제들과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주치지 않았다.

북쪽으로 이동하던 황인종은 인구가 과도하게 팽창함으로써 홍색인의 사냥터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침입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종적 적개심과 함께, 최고 지점까지 호전성을 부추겼고, 이처럼 더 멀리 **아시아**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혹독한 투쟁이 시작됐다.

홍인종과 황인종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의

arise to lead all India in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 and then the world will observe the fruition of the cultural potentialities of a versatile people so long comatose under the benumbing influence of an unprogressing spiritual vision.

79:4.9 (883.1) Culture does rest on a biologic foundation, but caste alone could not perpetuate the Aryan culture, for religion, true religion, is the indispensable source of that higher energy which drives men to establish a superior civilization based on human brotherhood.

5. RED MAN AND YELLOW MAN

79:5.1 (883.2) While the story of India is that of Andite conquest and eventual submergence in the older evolutionary peoples, the narrative of eastern Asia is more properly that of the primary Sangiks, particularly the red man and the yellow man. These two races largely escaped that admixture with the debased Neanderthal strain which so greatly retarded the blue man in Europe, thus preserving the superior potential of the primary Sangik type.

79:5.2 (883.3) While the early Neanderthals were spread out over the entire breadth of Eurasia, the eastern wing was the more contaminated with debased animal strains. These subhuman types were pushed south by the fifth glacier, the same ice sheet which so long blocked Sangik migration into eastern Asia. And when the red man moved northeast around the highlands of India, he found northeastern Asia free from these subhuman types. The tribal organization of the red races was formed earlier than that of any other peoples, and they were the first to migrate from the central Asian focus of the Sangiks. The inferior Neanderthal strains were destroyed or driven off the mainland by the later migrating yellow tribes. But the red man had reigned supreme in eastern Asia for almost one hundred thousand years before the yellow tribes arrived.

79:5.3 (883.4)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go the main body of the yellow race entered China from the south as coastwise migrants. Each millennium they penetrated farther and farther inland, but they did not make contact with their migrating Tibetan brethren until comparatively recent times.

79:5.4 (883.5) Growing population pressure caused the northward-moving yellow race to begin to push into the hunting grounds of the red man. This encroachment, coupled with natural racial antagonism, culminated in increasing hostilities, and thus began the crucial struggle for the fertile lands of farther Asia.

79:5.5 (883.6) The story of this agelong contest between the red and yellow races is an epic of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 {敍事詩}다. 이 두 우수한 인종은, 20만 년이 넘는 동안 더 냉혹하고 끈질긴 전쟁을 벌였다. 초기 투쟁에서는 대체로 홍색인이 우세해서, 습격을 담당하는 그들의 무리는 황색인 정착지를 황폐화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황색인은 전쟁 기술을 배우는 데 매우 기민했고, 동포와 평화롭게 사는 상당한 역량을 일찍부터 나타냈는데, **중국인**은 합동하는 것에 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홍색 부족들은 내부 투쟁을 계속했으며, 더욱 냉혹한 **중국인**의 적극적인 공격에 계속 패배를 맛보기 시작했으며, **중국인**은 사정없이 북쪽으로 계속 진군했다.

10만 년 전에, 많은 사람을 잃은 홍인종 부족들은, 뒤로는 마지막 빙하기의 퇴각하는 얼음 덩어리와 싸워야 했으며, **베링** 해협이 육로{陸路}를 통해서 **서부**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자, 이 부족들은 야박스런 **아시아** 대륙 해안을 서슴없이 떠나게 됐다. 순수한 홍인종이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난 지 8만 5천 년이 지났지만, 오랜 기간의 투쟁은 승리를 거둔 황인종에게 유전적인 흔적을 남겼다. **안돈족속 시베리아인**과 함께, 북부 지역 **중국** 민족들은 홍색 혈통을 많이 닮았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유익을 얻었다.

북 아메리카 인디언은, **아담**과 **이브**의 **안드족속** 후손과 전혀 접촉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담**의 도래보다 약 5만 년 전에, 그들의 고향이었던 **아시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안드족속**이 이주하는 동안, 순수한 홍색 혈통이 방랑하는 부족, 즉 농사를 약간 짓는 사냥꾼이 되면서 **북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 이 종족들 및 문화 집단들은, **그리스도** 교 시대의 첫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유럽**의 백인종에게 발견될 때까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래 세계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격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북쪽에 있는 홍색인 부족들이 봤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키모**가 백색인에 가장 가까웠다.

홍인종 및 황인종은, **안드족속**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유일한 인간 혈통이었다.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인디언** 문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나모나론톤**이었지만, 이것은 기원전 3만 5천 년경에 사라진 지 오래 됐다. **중앙 아메리카**의 **멕시코**에서 그리고 **남 아메리카**의 산악지대에서, 나중에 더 오래 지속된 문명들은, 주로 홍인종이지만 황색, 주황색, 및 청인종이 상당히 섞인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이 문명은 **상익** 인종의 진화 산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안드족속** 핏줄의 흔적이 **페루**에서도 발견된다. **북 아메리카**의 **에스키모**와 **남 아메리카**에 있는 소수의 **폴리네시아 안드족속**을 제외하면, **서**

Urantia history. For over two hundred thousand years these two superior races waged bitter and unrelenting warfare. In the earlier struggles the red men were generally successful, their raiding parties spreading havoc among the yellow settlements. But the yellow man was an apt pupil in the art of warfare, and he early manifested a marked ability to live peaceably with his compatriots; the Chinese were the first to learn that in union there is strength. The red tribes continued their internecine conflicts, and presently they began to suffer repeated defeats at the aggressive hands of the relentless Chinese, who continued their inexorable march northward.

79:5.6 (883.7)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the decimated tribes of the red race were fighting with their backs to the retreating ice of the last glacier, and when the land passage to the West, over the Bering isthmus, became passable, these tribes were not slow in forsaking the inhospitable shores of the Asiatic continent. It is eighty-five thousand years since the last of the pure red men departed from Asia, but the long struggle left its genetic imprint upon the victorious yellow race. The northern Chinese peoples, together with the Andonite Siberians, assimilated much of the red stock and were in considerable measure benefited thereby.

79:5.7 (884.1) The North American Indians never came in contact with even the Andite offspring of Adam and Eve, having been dispossessed of their Asiatic homelands some fifty thousand years before the coming of Adam. During the age of Andite migrations the pure red strains were spreading out over North America as nomadic tribes, hunters who practiced agriculture to a small extent. These races and cultural groups remained almost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remainder of the world from their arrival in the Americas down to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of the Christian era, when they were discovered by the white races of Europe. Up to that time the Eskimos were the nearest to white men the northern tribes of red men had ever seen.

79:5.8 (884.2) The red and the yellow races are the only human stocks that ever achieved a high degree of civilization apart from the influences of the Andites. The oldest Amerindian culture was the Onamonalonton center in California, but this had long since vanished by 35,000 B.C. In Mexico, Central America, and in the mountains of South America the later and more enduring civilizations were founded by a race predominantly red but containing a considerable admixture of the yellow, orange, and blue.

79:5.9 (884.3) These civilizations were evolutionary products of the Sangiks, notwithstanding that traces of Andite blood reached Peru. Excepting the Eskimos in North America and a few

반구 민족들은 기원후 첫 1,000년이 끝날 무렵까지 세계의 다른 인종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멜기세덱**의 원래 계획에서는, **아담**의 순수 계통 후손 100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들의 홍색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게 돼있었다.

6. 중국 문명의 발단

홍색인이 **북 아메리카**로 쫓겨 건너간 후 얼마 있다가, 확장하는 **중국인**이 동부 **아시아**의 여러 강 유역에서 **안돈족속**을 몰아냈는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투르케스탄**으로 그들을 밀어냈으며, 거기서 그들은 곧 **안드족속**의 우수한 문화와 접촉하게 됐다.

버마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어 그 지역에 연속되는 문명을 창출했다. 여기서는, 사라진 녹색인종이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 더 큰 비율로 존속해 왔다.

많은 다른 인종이 **태평양** 섬들을 점령했다. 대체로, 남쪽 섬들을, 그 다음에는 더 광범한 지역의 섬들을, 높은 비율의 녹색과 남색 피를 지닌 민족들이 점령했다. 북쪽 섬들은 **안돈족속**이 차지했고, 나중에는 황색 혈통과 홍색 혈통 중에서 큰 부분을 포함하는 인종들이 차지했다. **일본인** 민족의 조상은 기원전 12,000년까지 본토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가, 그때 북쪽 **중국인** 부족들이 남쪽 해안을 따라 강력하게 밀려 내려옴으로써 쫓겨났다. 그들의 최종 탈출은, 인구 팽창 압력 때문이라기 보다, 오히려 그들이 신성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 어떤 족장(族長)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었다.

인도와 **레반트**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황색인 부족이 해안선과 강줄기를 따라서 초기 중심지들을 건설했다. 연안(沿岸)에 있는 주거지는, 홍수가 잦아지면서, 그리고 강줄기가 변경됨으로 인해 낮은 지역의 도시들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나중에는 살아가기 힘들게 됐다.

2만 년 전에, **중국인** 조상은 열두 개에 달하는 강력한 원시 문화 및 교육 중심지들을 건설했는데, 특히 **황하**와 **양쯔강**을 따라서 세웠다. 그리고 그때 이 중심지들은, **신장**과 **티벳**으로부터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피가 섞인 우수한 민족들이 도착함으로 인해 보강되기 시작했다. **티벳**으로부터 **양쯔강** 유역에 이르는 이주는, 북쪽에서 일어난 것처럼 광범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티벳** 중심지들도 **다림** 분지 중심지들만큼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두 무리는 상당한 양의 **안드족속** 핏줄을 지니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강변에 정착했다.

Polynesian Andites in South America, the peoples of the Western Hemisphere had no contact with the rest of the world until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In the original Melchizedek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Urantia races it had been stipulated that one million of the pure-line descendants of Adam should go to upstep the red men of the Americas.

6. DAWN OF CHINESE CIVILIZATION

79:6.1 (884.4) Sometime after driving the red man across to North America, the expanding Chinese cleared the Andonites from the river valleys of eastern Asia, pushing them north into Siberia and west into Turkestan, where they were soon to come in contact with the superior culture of the Andites.

79:6.2 (884.5) In Burma and the peninsula of Indo-China the cultures of India and China mixed and blended to produce the successive civilizations of those regions. Here the vanished green race has persisted in larger proportion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79:6.3 (884.6) Many different races occupied the islands of the Pacific. In general, the southern and then more extensive islands were occupied by peoples carrying a heavy percentage of green and indigo blood. The northern islands were held by Andonites and, later on, by races embracing large proportions of the yellow and red stocks. The ancestors of the Japanese people were not driven off the mainland until 12,000 B.C., when they were dislodged by a powerful southern-coastwise thrust of the northern Chinese tribes. Their final exodus was not so much due to population pressure as to the initiative of a chieftain whom they came to regard as a divine personage.

79:6.4 (885.1) Like the peoples of India and the Levant, victorious tribes of the yellow man established their earliest centers along the coast and up the rivers. The coastal settlements fared poorly in later years as the increasing floods and the shifting courses of the rivers made the lowland cities untenable.

79:6.5 (885.2) Twenty thousand years ago the ancestors of the Chinese had built up a dozen strong centers of primitive culture and learning, especially along the Yellow River and the Yangtze. And now these centers began to be reinforced by the arrival of a steady stream of superior blended peoples from Sinkiang and Tibet. The migration from Tibet to the Yangtze valley was not so extensive as in the north, neither were the Tibetan centers so advanced as those of the Tarim basin. But both movements carried a certain amount of Andite blood eastward to the river settlements.

고대 황인종의 우수성은 네 가지 큰 요인 때문이었다:

1. **유전적 요인.** 유럽에 있는 그들의 청색 동족과는 달리, 홍인종과 황인종은 저질(低質)의 인간 혈통들과 혼합되는 것을 대개 피할 수 있었다. 우수한 홍색 혈통과 **안돈** 혈통이 약간 섞인 북부의 **중국인**은, **안드족속** 피가 상당히 유입됨으로써 곧 유익을 얻게 됐다. 남부의 **중국인**은 이런 점에서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는데, 녹색인종을 흡수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했고, 나중에는 **드라비다-안드족속** 침입으로 인해 **인도**에서 도망 나온 열등한 민족들 무리가 침투해 들어와서 훨씬 약화됐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북부 종족과 남부 종족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 요인.** 황인종은 자기들끼리 평화로운 것이 귀중함을 일찍부터 습득했다. 그들의 내부적 평화 유지 능력은 인구 증가에 막대하게 기여해서 그들의 문명이 수백만의 사람에게 퍼지게 했다. 기원전 25,000년부터 5000년까지, **유란시아**에서 가장 높은 집단 문명은 **중국** 중앙과 북부 지역에 있었다. 황색인이 인종적 결속을 처음 성취했다--큰 규모의 문화, 사회, 및 정치 문명을 처음 달성했다.

기원전 15,000년에 **중국인**은 공격적인 군국주의자였으며, 옛 사람을 과도하게 숭상함으로써 약화되는 일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숫자는 1,200만이 채 안됐으며,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밀집된 집단을 형성했다. 그들은 이 시기 동안에 실제 국가를 형성했는데, 역사 시대에 이룩한 그들의 정치적 합동보다 훨씬 결합됐고 동질성이 있었다.

3. **영적 요인.** **안드족속**이 이주하는 동안에, **중국인**은 이 세상에서 더 영적인 민족에 속했다. 그들은 **싱글랑톤**이 전한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는데 오랫동안 집착했으므로, 대부분의 다른 인종들보다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진취적이고 발전된 종교의 자극이, 때로는 문화 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인도**가 쇠약해졌을 때, **중국**은 진리를 최고 **신격**으로 모시는 어떤 종교의 자극, 활력을 주는 자극 아래서 착실히 전진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숭배는, 자연 법칙과 인류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대담하게 탐구하도록 유도했다. 6,000년 전에도, **중국인**은 여전히 예민한 학생이었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4. **지형적 요인.** **중국**은, 서쪽은 산맥 때문에, 그리고 동쪽은 **태평양** 때문에 보호 받았다. 오직 북쪽에서만 공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홍색인 시대부터 후대에 **안드족속**의 자손이 도래할 때까지, 어떤 호전적인 종족도 북쪽을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산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적

79:6.6 (885.3) The superiority of the ancient yellow race was due to four great factors:

79:6.7 (885.4) 1. *Genetic.* Unlike their blue cousins in Europe, both the red and yellow races had largely escaped mixture with debased human stocks. The northern Chinese, already strengthened by small amounts of the superior red and Andonic strains, were soon to benefit by a considerable influx of Andite blood. The southern Chinese did not fare so well in this regard, and they had long suffered from absorption of the green race, while later on they were to be further weakened by the infiltration of the swarms of inferior peoples crowded out of India by the Dravidian-Andite invasion. And today in China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races.

79:6.8 (885.5) 2. *Social.* The yellow race early learned the value of peace among themselves. Their internal peaceableness so contributed to population increase as to insure the spread of their civilization among many millions. From 25,000 to 5000 B.C. the highest mass civilization on Urantia was in central and northern China. The yellow man was first to achieve a racial solidarity — the first to attain a large-scale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civilization.

79:6.9 (885.6) The Chinese of 15,000 B.C. were aggressive militarists; they had not been weakened by an overreverence for the past, and numbering less than twelve million, they formed a compact body speaking a common language. During this age they built up a real nation, much more united and homogeneous than their political unions of historic times.

79:6.10 (885.7) 3. *Spiritual.* During the age of Andite migrations the Chinese were among the more spiritual peoples of earth. Long adherence to the worship of the One Truth proclaimed by Singlangton kept them ahead of most of the other races. The stimulus of a progressive and advanced religion is often a decisive factor in cultural development; as India languished, so China forged ahead under the invigorating stimulus of a religion in which truth was enshrined as the supreme Deity.

79:6.11 (885.8) This worship of truth was provocative of research and fearless exploration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potentials of mankind. The Chinese of even six thousand years ago were still keen students and aggressive in their pursuit of truth.

79:6.12 (885.9) 4. *Geographic.* China is protected by the mountains to the west and the Pacific to the east. Only in the north is the way open to attack, and from the days of the red man to the coming of the later descendants of the Andites, the north was not occupied by any aggressive race.

79:6.13 (886.1) And but for the mountain barriers and

문화에서 후대{後代}의 퇴보가 없었다면, 황인종은 분명히,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이주하는 **안드족속** 대부분을 끌어들이 수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틀림없이 세계 문명을 재빨리 지배했을 것이다.

7. 중국에 들어온 안드족속

약 1만 5천 년 전에, 상당한 숫자의 **안드족속**이 **티 타오** 고개를 넘었고, **칸수**에 있는 **중국인** 정착지들 중에서 **황하** 상류 유역으로 퍼졌다. 그들은 이윽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호난**에 이르렀고, 거기서 가장 진취적인 정착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서쪽에서 침투한 사람들은 대체로 **안돈족속**이 절반이고 **안드족속**이 절반이었다.

황하 유역을 따라서 이뤄진 북쪽 문화 중심지들은, **양쯔강**에 있는 남쪽 정착지보다 항상 더 진취적이었다. 소수의 무리이기는 했지만 우수한 이필사자들이 도착한 후 수천 년 내에, **황하** 유역 정착지들은 **양쯔강** 마을들보다 착실히 앞서 나갔고, 남부에 있는 동족보다 우위를 차지했으며, 이 우위는 그 후로 늘 유지됐다.

그것은 **안드족속**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수했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직 그들과의 혼합으로 더 다재다능한 혈통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북부 **중국인**은 선천적으로 유능한 정신을 약간 자극하기에 겨우 충분할 만큼 **안드족속** 종족을 받았지만, 북부 백인종의 특질처럼, 들떠있고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으로 그들을 불태울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안드족속** 유전형질이 이렇게 더 제한적으로 주입됨으로써, **상익** 유형의 타고난 안정성은 별로 교란되지 않았다.

후대에 이동한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향상된 문화를 함께 가져왔으며; 이것은 특히 서쪽에서 이동한 마지막 물결에서 더 그랬다. 그들은 북부 **중국인**의 경제 및 교육 관습을 크게 증진시켰으며; 반면에 황인종의 종교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들의 먼 후손이, 나중에 일어난 영적 각성에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에덴**과 **달라마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드족속** 전승이 **중국**의 전승에 영향을 줬으며; 초기 **중국** 전설은 “신{神}들의 땅”이 서쪽에 있다고 간주했다.

중국인 민족은, 기원전 10,000년이 지날 때까지, 즉 **투르케스탄**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후대의 **안드족속**이 도착한 후까지, 도시 건설을 시작하지 못했고 제조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이런 새로운 핏줄의 주입은, 황색인의 문명에 많이 기여했다기보다, 오히려 우수한 **중국인** 혈통의 잠재적

the later decline in spiritual culture, the yellow race undoubtedly would have attracted to itself the larger part of the Andite migrations from Turkestan and unquestionably would have quickly dominated world civilization.

7. THE ANDITES ENTER CHINA

79:7.1 (886.2)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the Andites, in considerable numbers, were traversing the pass of Ti Tao and spreading out over the upper valley of the Yellow River among the Chinese settlements of Kansu. Presently they penetrated eastward to Honan, where the most progressive settlements were situated. This infiltration from the west was about half Andonite and half Andite.

79:7.2 (886.3) The northern centers of culture along the Yellow River had always been more progressive than the southern settlements on the Yangtze. Within a few thousand years after the arrival of even the small numbers of these superior mortals, the settlements along the Yellow River had forged ahead of the Yangtze villages and had achieved an advanced position over their brethren in the south which has ever since been maintained.

79:7.3 (886.4) It was not that there were so many of the Andites, nor that their culture was so superior, but amalgamation with them produced a more versatile stock. The northern Chinese received just enough of the Andite strain to mildly stimulate their innately able minds but not enough to fire them with the restless, exploratory curiosity so characteristic of the northern white races. This more limited infusion of Andite inheritance was less disturbing to the innate stability of the Sangik type.

79:7.4 (886.5) The later waves of Andites brought with them certain of the cultural advances of Mesopotamia;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last waves of migration from the west. They greatly improved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practices of the northern Chinese; and while their influence upon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yellow race was short-lived, their later descendants contributed much to a subsequent spiritual awakening. But the Andite traditions of the beauty of Eden and Dalamatia did influence Chinese traditions; early Chinese legends place “the land of the gods” in the west.

79:7.5 (886.6) The Chinese people did not begin to build cities and engage in manufacture until after 10,000 B.C., subsequent to the climatic changes in Turkestan and the arrival of the later Andite immigrants. The infusion of this new blood did not add so much to the civilization of the yellow man as it stimulated the further and rapid development

경향이 더 깊고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자극했다. **호난**에서 **센시**에 이르기까지, 진보된 문명의 잠재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금속 가공과 모든 제조 기술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간 계산, 천문학, 그리고 정부 경영에 대한 **중국**의 방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방법 일부가 비슷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중심지 사이의 상업 관계 때문이었다. **중국**의 상인들은, **수메르인** 시대에 이미 육로(陸路)를 통해 **투르케스탄**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여행했다. 이런 교환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다--즉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칸지스** 평원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기원전 셋째 천년의 유목민 침입으로 말미암아, 중앙 **아시아**의 대상로(隊商路)를 지나가는 교역량이 크게 줄었다.

8. 후대의 중국 문명

홍색인은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해 시달렸지만, **중국인** 가운데서 국가체제의 발달은, 그들이 **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연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종족의 결속(結束)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성을 적절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외적(外的) 공격이 항상 존재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계속 몰아붙이는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부 **아시아** 정복이 완료됨과 함께, 고대의 군사 체제가 서서히 붕괴됐다--과거의 전쟁은 잊혀졌다. 홍인종과 투쟁했던 이야기 가운데, 활 쏘는 민족들과 옛날에 싸웠다는 희미한 전승만 남았다. **중국인**은 일찍부터 농업으로 돌아섰고,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을 더 심화시켰으며, 동시에 농사짓기에 필요한 인구 밀도보다 훨씬 적은 인구도, 그 나라의 평화로움을 증대시키는 데 더욱 기여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쇠퇴한) 과거의 성취에 대한 의식, 압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보수적 경향, 그리고 잘 발달된 가족생활이 조상숭배(祖上崇拜)를 탄생시켰는데, 조상에 대한 존경이 극에 달한 나머지, 숭배 비슷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붕괴된 후에 거의 5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백인종들 가운데서 매우 비슷한 태도가 유행된 적이 있었다.

싱글랑톤이 가르쳤던 “**하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숭배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결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새롭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이미 설립된 것을 공경하려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빛을 잃었다. 황인종의 천재성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는 태도에서, 이미

of the latent tendencies of the superior Chinese stocks. From Honan to Shensi the potentials of an advanced civilization were coming to fruit. Metalworking and all the arts of manufacture date from these days.

79:7.6 (886.7) The similarities between certain of the early Chinese and Mesopotamian methods of time reckoning, astronomy,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were due to the commer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remotely situated centers. Chinese merchants traveled the overland routes through Turkestan to Mesopotamia even in the days of the Sumerians. Nor was this exchange one-sided — the valley of the Euphrates benefited considerably thereby, as did the peoples of the Gangetic plain. But the climatic changes and the nomadic invasions of the third millennium before Christ greatly reduced the volume of trade passing over the caravan trails of central Asia.

8. LATER CHINESE CIVILIZATION

79:8.1 (887.1) While the red man suffered from too much warfare, it is not altogether amiss to say that the development of statehood among the Chinese was delayed by the thoroughness of their conquest of Asia. They had a great potential of racial solidarity, but it failed properly to develop because the continuous driving stimulus of the ever-present danger of external aggression was lacking.

79:8.2 (887.2) With the completion of the conquest of eastern Asia the ancient military state gradually disintegrated — past wars were forgotten. Of the epic struggle with the red race there persisted only the hazy tradition of an ancient contest with the archer peoples. The Chinese early turned to agricultural pursuits, which contributed further to their pacific tendencies, while a population well below the land-man ratio for agriculture still further contributed to the growing peacefulness of the country.

79:8.3 (887.3) Consciousness of past achievements (somewhat diminished in the present), the conservatism of an overwhelmingly agricultural people, and a well-developed family life equaled the birth of ancestor veneration, culminating in the custom of so honoring the men of the past as to border on worship. A very similar attitude prevailed among the white races in Europe for some five hundred years following the disruption of Greco-Roman civilization.

79:8.4 (887.4) The belief in, and worship of, the “One Truth” as taught by Singlangton never entirely died out; but as time passed, the search for new and higher truth became overshadowed by a growing tendency to venerate that which was already established. Slowly the genius of the yellow race

알려진 것을 보존하려는 태도로 서서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보 하던 문명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기원전 4000년과 500년 사이에, 황인종의 정치적 재통합(再統合)이 이룩됐지만, **양쯔강과 황하**에 있는 중심지들의 문화적 연합은 이미 완료돼 있었다. 후대 부족 집단들의 정치적 재통일에 갈등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쟁에 대한 사회 여론은 빈약한 상태에 머물렀으며; 조상 숭배, 늘어나는 숫자의 방언,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군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과도한 평화를 누렸다.

황인종은, 발전된 국가체제로 일찍부터 발전 될 가능성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문명의 기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특히 농업과 원예술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센시와 호난**에서는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부딪쳤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집단의 협동이 요구됐다. 그런 관계 {灌漑}와 토양_보존 문제는, 상호의존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했고, 나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사이에 평화가 촉진됐다.

곧, 기록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식이 보급되도록 기여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인쇄술이 출현했음에도, 표의문자{表意文字} 체계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지식인 계층의 숫자는 매우 제한됐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의 표준화{標準化}와 종교_철학의 교의화{敎義化}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됐다. 조상을 공경하는 종교의 발달은, 자연 숭배를 포함하는 미신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하게 됐지만,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의 끈질긴 흔적이, **상_티**라는 황제 숭배에 간직된 채 유지됐다.

조상 숭배의 중대한 약점은, 과거만 생각하는 사상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과거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과거만을 유일한 진리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장하며; 현재 속에 항상 살아 있어서, 각 인간 세대마다--심지어 각 인생마다--새 표현을 이룩한다.

조상 숭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태도가 가족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인** 문명의 놀랄만한 안정성과 지속성은, 가족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생긴 결과인데, 문명은 가족의 효과적 기능발휘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이며; **중국**에서 가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달성했고, 심지어 어떤 다른 민족도 거의 접근하지 못한 종교적 의미까지 달성했다.

심화되는 조상 숭배 종파{宗派}가 강요하는,

became diverted from the pursuit of the unknown to the preservation of the known.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e stagnation of what had been the world's most rapidly progressing civilization.

79:8.5 (887.5) Between 4000 and 500 B.C. the political reunification of the yellow race was consummated, but the cultural union of the Yangtze and Yellow river centers had already been effected. This political reunification of the later tribal groups was not without conflict, but the societal opinion of war remained low; ancestor worship, increasing dialects, and no call for military action for thousands upon thousands of years had rendered this people ultrapeaceful.

79:8.6 (887.6) Despite failure to fulfill the promise of an early development of advanced statehood, the yellow race did progressively move forward in the realization of the arts of civilization, especially in the realms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The hydraulic problems faced by the agriculturists in Shensi and Honan demanded group co-operation for solution. Such irrigation and soil-conservation difficulties contributed in no small measure to the development of interdependence with the consequent promotion of peace among farming groups.

79:8.7 (887.7) Soon developments in writing,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on a previously unequaled scale. But the cumbersome nature of the ideographic writing system placed a numerical limit upon the learned classes despite the early appearance of printing. And above all else, the process of social standardization and religio-philosophic dogmatization continued apace.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ancestor veneration became further complicated by a flood of superstitions involving nature worship, but lingering vestiges of a real concept of God remained preserved in the imperial worship of Shang-ti.

79:8.8 (888.1) The great weakness of ancestor veneration is that it promotes a backward-looking philosophy. However wise it may be to glean wisdom from the past, it is folly to regard the past as the exclusive source of truth. Truth is relative and expanding; it *lives* always in the present, achieving new expression in each generation of men — even in each human life.

79:8.9 (888.2) The great strength in a veneration of ancestry is the value that such an attitude places upon the family. The amazing stability and persistence of Chinese culture is a consequence of the paramount position accorded the family, for civilization is directly dependent on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family; and in China the family attained a social importance, even a religious significance, approached by few other peoples.

79:8.10 (888.3) The filial devotion and family loyalty

자식으로서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충성은, 뛰어난 가족 관계 형성과 영구적 가족 집단 형성을 보장했으며, 문명 보존에서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촉진시켰다:

1. 재산과 부(富)의 보존.
2. 한 세대 이상의 체험이 쌓이게 함.
3. 과거의 기술과 과학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함.
4. 강한 의무 감각의 개발, 도덕의 향상,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敏感性)의 증진.

중국 문명의 형성 기간은, **안드족속**의 도래와 함께 시작됐고, 기원전 6세기에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및 반(半)종교적 각성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중국**의 전승(傳承)은 과거의 발전에 대한 어렴풋한 기록을 보존했는데, 즉;모계(母系)에서 부계(父系)중심의 가족으로 전환함, 농업의 확립, 농업의 발달, 산업의 개시--이 모든 것을 연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비슷한 설명보다 훨씬 정확하게, 우수한 민족이 미개한 수준에서 훌륭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원시 농업사회로부터, 도시, 제조업, 금속 가공, 상업 교역, 정부, 기록, 수학, 예술, 과학, 인쇄 등을 포함하는, 더 높은 사회 체제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황인종의 고대 문명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전해 내려왔다. 최초의 중요한 발전이 **중국인** 문명에 발생한 이래, 거의 4만 년이 지났고, 여러 차례 퇴보 과정이 있었지만, **한**의 아들들이 세운 문명은 20세기 시대까지 내려오는, 계속적인 진보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백인종의 기계 및 종교의 발전은, 어떤 높은 체제를 이룩하고 있지만, 가족 충성심이나 집단 윤리 또는 개인의 도덕성 면에서는 **중국인**보다 뛰어난 적이 없었다.

이런 고대 문화는 인간의 행복에 많이 기여했으며;수많은 인간이 그 업적으로 혜택을 입으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 위대한 문명은, 수세기 동안 과거에 얻었던 명예로 만족해 왔지만, 필사자 실존의 초월적 목표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진보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성하고 있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exacted by the growing cult of ancestor worship insured the building up of superior family relationships and of enduring family groups, all of which facilitated the following factors in the preservation of civilization:

- 79:8.11 (888.4) 1. Conservation of property and wealth.
- 79:8.12 (888.5) 2. Pooling of the experience of more than one generation.
- 79:8.13 (888.6) 3. Efficient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arts and sciences of the past.
- 79:8.14 (888.7) 4. Development of a strong sense of duty, the enhancement of morality, and the augmentation of ethical sensitivity.

79:8.15 (888.8) The formative period of Chinese civilization, opening with the coming of the Andites, continues on down to the great ethical, moral, and semireligious awakening of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And Chinese tradition preserves the hazy record of the evolutionary past; the transition from mother- to father-family,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e,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he initiation of industry — all these are successively narrated. And this story presents, with greater accuracy than any other similar account, the picture of the magnificent ascent of a superior people from the levels of barbarism. During this time they passed from a primitive agricultural society to a higher social organization embracing cities, manufacture, metalworking, commercial exchange, government, writing, mathematics, art, science, and printing.

79:8.16 (888.9) And so the ancient civilization of the yellow race has persisted down through the centuries. It is almost forty thousand years since the first important advances were made in Chinese culture, and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trogressions, the civilization of the sons of Han comes the nearest of all to presenting an unbroken picture of continual progression right on down to the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echanical and religious developments of the white races have been of a high order, but they have never excelled the Chinese in family loyalty, group ethics, or personal morality.

79:8.17 (888.10) This ancient culture has contributed much to human happiness; millions of human beings have lived and died, blessed by its achievements. For centuries this great civilization has rested upon the laurels of the past, but it is even now reawakening to envision anew the transcendent goals of mortal existence, once again to take up the unremitting struggle for never-ending progress.

79:8.18 (888.11)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80편. 서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 079

유란시아 책

08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0편

서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섹션

소개

1. 유럽에 들어간 아담족속
2. 기후와 지형의 변화
3. 크로_마뇽 청색인
4. 유럽의 안드족속 침입
5. 안드족속의 북유럽 정복
6. 나일 강 근처의 안드족속
7. 지중해 섬들의 안드족속
8. 다뉴브 강의 안드족속
9. 세 백인종

소개

유럽의 청색인은, 위대한 문화가 있는 문명을 비록 스스로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아담**화{化}된 혈통들이 후대의 **안드족속** 침입자와 섞였을 때, 보라색 인종과 그 **안드족속** 계승자의 시대 이후로 일찍이 **유란시아**에 나타난 진취적 문명을 달성하기에 가장 유능한 혈통 가운데 하나를 창출한,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현대의 백색 민족들은 **아담** 혈통 중에서 살아남은 핏줄들을 흡수했는데, 이 **아담** 혈통은, **상**의 인종, 즉 어느 정도 홍인종 및 황인종이지만 특히 청인종과 섞이게 됐다. 모든 백인종에는 상당한 비율의 원래 **안드족속** 혈통이 포함됐고, 초기 **노드족속** 핏줄은 훨씬 높은 비율로 들어 있다.

1. 유럽에 들어간 아담족속

PAPER 80

ANDITE EXPANSION IN THE OCCID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damites Enter Europe
2.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3. The Cro-Magnoid Blue Man
4. The Andite Invasions of Europe
5. The Andite Conquest of Northern Europe
6. The Andites along the Nile
7. Andites of the Mediterranean Isles
8. The Danubian Andonites
9. The Three White Races

INTRODUCTION

80:0.1 (889.1) ALTHOUGH the European blue man did not of himself achieve a great cultural civilization, he did supply the biologic foundation which, when its Adamized strains were blended with the later Andite invaders, produced one of the most potent stocks for the attainment of aggressive civilization ever to appear on Urantia since the times of the violet race and their Andite successors.

80:0.2 (889.2) The modern white peoples incorporate the surviving strains of the Adamic stock which became admixed with the Sangik races, some red and yellow but more especially the blue. There is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 original Andonite stock in all the white races and still more of the early Nodite strains.

1. THE ADAMITES ENTER EUROPE

마지막 **안드족속**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의 많은 형제는, 모험가, 선생, 상인, 및 전사{戰士}로서 **유럽**에 들어갔다. 보라색 인종이 활동하던 초기 시대에는, **지중해** 해구{海溝}가 **지브롤터** 해협과 **시칠리아** 연결육지로 보호 받았다. 사람의 아주 초기 해상 교역 가운데 일부는 이런 내륙 호수들에서 이뤄졌는데, 북쪽에서 온 청색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이 동쪽에서 온 **노드족속** 및 **아담족속**과 거기서 만났다.

지중해 해구 동쪽 유역에서, **노드족속**은 자신의 가장 광범한 문화 가운데 하나를 이룩했고, 이 중심지들에서 **유럽** 남부 쪽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들어갔지만, 특히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얼굴이_넓적한 **노드족속_안드족속 시리아인**은, 서서히 융기되는 **나일** 강 삼각주에 정착했으므로, 도기{陶器} 제조법과 농업을 매우 일찍부터 도입했다. 또한 그들은, 양, 염소, 소, 그리고 길들여진 다른 동물을 수입했고, 크게 개선된 금속 가공법을 들여왔는데,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런 산업의 중심지였다.

3만 년이 넘도록, **이집트**에는 **메소포타미아인**이 꾸준하게 이주해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신의 예술과 문화를 가져와서 **나일** 강 유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엄청난 숫자의 **사하라** 사람이 유입돼서 **나일** 강 주변의 초기 문명을 크게 약화시켰으므로, 약 15,000년 전에는 **이집트** 문화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담족속**의 서부 이주를 방해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사하라**는 목동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넓은 목초지였다. **사하라인**은 제조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멸종된 녹색 및 주황인종의 혈통을 많이 지닌 남색_흑색 집단에 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습기 많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부유하고 평화로운 문명을 소멸시키고 땅이 융기되기 전에, 아주 제한된 양의 보라색 유전형질을 받았다.

아담의 피가 대부분의 인간 종족에게 나눠졌지만, 더러는 다른 종족들보다 더 확보했다. **인도**의 혼합된 인종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색 사람들은 **아담족속**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홍색인이 멀리 이주해서 **아메리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담족속**은 홍색인과 자유롭게 섞었을 것이며, 황색인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보였겠지만, 황인종도 너무 먼 **아시아** 지역에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접촉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모험심이나 애타심이 작용했을 때, 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유럽**에 있는 청인종들과 합동하기를 매우 자연스럽게 선택했다.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던 청색인에게는, 초기에 이주하던 **아담족속**에게 불쾌감을 주는 종교 관습이 전혀 없었고, 보라색 인종과 청인종은 서로

80:1.1 (889.3) Before the last Andites were driven out of the Euphrates valley, many of their brethren had entered Europe as adventurers, teachers, traders, and warriors. During the earlier days of the violet race the Mediterranean trough was protected by the Gibraltar isthmus and the Sicilian land bridge. Some of man's very early maritime commerce was established on these inland lakes, where blue men from the north and the Saharans from the south met Nodites and Adamites from the east.

80:1.2 (889.4) In the eastern trough of the Mediterranean the Nodites had established one of their most extensive cultures and from these centers had penetrated somewhat into southern Europe but more especially into northern Africa. The broad-headed Nodite-Andonite Syrians very early introduced pottery and agri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ir settlements on the slowly rising Nile delta. They also imported sheep, goats, cattle, and other domesticated animals and brought in greatly improved methods of metalworking, Syria then being the center of that industry.

80:1.3 (889.5) For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Egypt received a steady stream of Mesopotamians, who brought along their art and culture to enrich that of the Nile valley. But the ingress of large numbers of the Sahara peoples greatly deteriorated the early civilization along the Nile so that Egypt reached its lowest cultural level some fifteen thousand years ago.

80:1.4 (889.6) But during earlier times there was little to hinder the westward migration of the Adamites. The Sahara was an open grazing land overspread by herders and agriculturists. These Saharans never engaged in manufacture, nor were they city builders. They were an indigo-black group which carried extensive strains of the extinct green and orange races. But they received a very limited amount of the violet inheritance before the upthrust of land and the shifting water-laden winds dispersed the remnants of this prosperous and peaceful civilization.

80:1.5 (890.1) Adam's blood has been shared with most of the human races, but some secured more than others. The mixed races of India and the darker peoples of Africa were not attractive to the Adamites. They would have mixed freely with the red man had he not been far removed in the Americas, and they were kindly disposed toward the yellow man, but he was likewise difficult of access in faraway Asia. Therefore, when actuated by either adventure or altruism, or when driven out of the Euphrates valley, they very naturally chose union with the blue races of Europe.

80:1.6 (890.2) The blue men, then dominant in Europe, had no religious practices which were repulsive to the earlier migrating Adamites, and

성적 매력을 많이 느꼈다. 청인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아담족속**과 결혼하도록 허락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모든 청색 남자는 **아담족속** 여자의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고 예술적인 상태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고, 우수한 청색 여자의 최고 소원은 **아담족속**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이주하는 이 **에덴**의 아들들은 청인종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유형의 사람들과 서서히 결합했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네안데르탈** 혈통의 종족들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면서, 자신의 문화 풍습을 활성화시켰다. 이런 종족 혼합 기법은, 열등한 종족들을 제거시킴과 함께, 우수한 청색인으로 구성된 열등 이상의 강건하고 진취적인 집단을 형성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는 **크로_마농인**이라고 불러 왔다.

이런 이유 및 기타 이유들로 인해, 이주하기에 더 유리한 경로가 조금도 없었음에도,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초기 물결이 거의 유일하게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현대 **유럽** 문명이 앞서도록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이었다.

2. 기후와 지형의 변화

보라색 인종이 **유럽**으로 들어가던 초기 팽창은, 어떤 기후 및 지형 변화로 갑자기 끝나게 됐다. 북쪽 빙원(氷原)이 물러감에 따라서, 습기가 많은 바람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졌고, 거대한 **사하라**의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가 점차 불모의 사막지대로 바뀌었다. 이런 건조 현상 때문에, 거대한 **사하라** 고원 거주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며 눈동자가 검고 얼굴이 길쭉했다.

더 순수한 남색 요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중앙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이르렀고, 그 후로 거기에 계속 남았다. 좀 더 혼합된 집단들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갔는데: 우수한 부족들은 서쪽으로 이주해서 **스페인**으로 갔고, 거기서 **유럽** 인근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후대에 **지중해**에 있던 얼굴이 길쭉하고 거무스름한 인종의 중심을 형성했다. 진보가 가장 안 된 무리가 **사하라** 고원 동쪽으로 향했고, **아라비아**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거쳐서 멀리 **실론**에 이르렀다. 중간에 해당되는 집단은 북동쪽으로 **나일** 강 유역까지, 그리고 **팔레스틴**으로 옮겨갔다.

데칸에서 **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지중해** 양쪽 해안선을 따라 흩어진 현대의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 2차 **상익** 토대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날 무렵에, **영국**이 대륙에서 분리됐고, **덴마크**가 바다 밑에서 솟아올랐으며, 한편 **지중해** 서쪽 해구(海溝)

there was great sex attraction between the violet and the blue races. The best of the blue men deemed it a high honor to be permitted to mate with the Adamites. Every blue man entertained the ambition of becoming so skillful and artistic as to win the affection of some Adamite woman, and it was the highest aspiration of a superior blue woman to receive the attentions of an Adamite.

80:1.7 (890.3) Slowly these migrating sons of Eden united with the higher types of the blue race, invigorating their cultural practices while ruthlessly exterminating the lingering strains of Neanderthal stock. This technique of race blending, combined with the elimination of inferior strains, produced a dozen or more virile and progressive groups of superior blue men, one of which you have denominated the Cro-Magnons.

80:1.8 (890.4) For these and other reasons, not the least of which was more favorable paths of migration, the early waves of Mesopotamian culture made their way almost exclusively to Europe. And it was these circumstances that determined the antecedents of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2.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80:2.1 (890.5) The early expansion of the violet race into Europe was cut short by certain rather sudden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With the retreat of the northern ice fields the water-laden winds from the west shifted to the north, gradually turning the great open pasture regions of Sahara into a barren desert. This drought dispersed the smaller-statured brunets, dark-eyed but long-headed dwellers of the great Sahara plateau.

80:2.2 (890.6) The purer indigo elements moved southward to the forests of central Africa, where they have ever since remained. The more mixed groups spread out in three directions: The superior tribes to the west migrated to Spain and thence to adjacent parts of Europe, forming the nucleus of the later Mediterranean long-headed brunet races. The least progressive division to the east of the Sahara plateau migrated to Arabia and thence through northern Mesopotamia and India to faraway Ceylon. The central group moved north and east to the Nile valley and into Palestine.

80:2.3 (890.7) It is this secondary Sangik substratum that suggests a certain degree of kinship among the modern peoples scattered from the Deccan through Iran, Mesopotamia, and along both shores of the Mediterranean Sea.

80:2.4 (890.8) About the time of these climatic changes in Africa, England separated from the continent, and Denmark arose from the sea, while

를 막는 **지브롤터** 해협이 지진 영향으로 길을 열어줬는데, 이 내륙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대서양**과 같은 높이가 됐다. 이윽고 **시칠리아** 연결육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중해**라는 하나의 바다가 탄생됐고, **대서양**과 연결됐다. 이런 자연의 대격변으로 인해 수많은 인간 정착지에 홍수가 났으며,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홍수로 인한 가장 많은 생명체 손실이 야기됐다.

지중해 분지가 이렇게 가라앉음으로써, **아담족속**의 서쪽 방향 이동은 즉각 줄어들었고, 한편 **사하라인**이 대량으로 유입됐으므로, 그들은 증가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덴**의 북쪽과 동쪽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아담** 후손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북쪽으로 여행했을 때, 당시에 확장돼 있던 **카스피 해**와 산맥 울타리들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아담족속**은 여러 세대 동안 사냥과 목축을 하고 정착지 주변 땅을 경작하면서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흩어졌다. 격조 높은 이 민족은 영역을 **유럽**으로 서서히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때 동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족속**은, 청색인의 문화가 **아시아** 문화보다 수 천 년 뒤쳐졌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의 접촉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돼 왔기 때문이다.

3. 크로_마농 청색인

청색인 문화의 고대 중심지는 **유럽**의 모든 강을 따라서 자리 잡았었지만, 지금은 오직 **솜므** 강이 빙하기 이전 동안 흘렀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흐른다.

청색인이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 인종 유형이 거기에 있었다. 3만 5천 년 전에도, **유럽** 청인종은 이미 홍색 및 황색의 두 핏줄을 지닌, 크게 혼합된 민족이었고, 한편 **대서양** 해안 지대와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안돈족속** 피를 흡수했고, 남쪽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인종 집단을 다 열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아담 이후의 이 초기 시절에 **유럽** 문명은, 청색인의 활동력과 예술을 **아담족속**의 창조적 상상력과 독특하게 혼합한 것이었다. 청색인은 활기 넘치는 인종이었지만, **아담족속**의 문화와 영적 상태를 크게 저하시켰다. 매우 많은 사람이 처녀를 속이고 타락시키는 경향 때문에, **아담족속**은 **크로_마농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심어 주기가 너무 힘들었다. 1만 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이룩된 종교 발전에 비교할 때, **유럽**의 종교는 가장 쇠퇴한 시기에 있었다.

the isthmus of Gibraltar, protecting the western basin of the Mediterranean, gave way as the result of an earthquake, quickly raising this inland lake to the level of the Atlantic Ocean. Presently the Sicilian land bridge submerged, creating one sea of the Mediterranean and connecting it with the Atlantic Ocean. This cataclysm of nature flooded scores of human settlements and occasioned the greatest loss of life by flood in all the world's history.

80:2.5 (891.1) This engulfment of the Mediterranean basin immediately curtailed the westward movements of the Adamites, while the great influx of Saharans led them to seek outlets for their increasing numbers to the north and east of Eden. As the descendants of Adam journeyed northward from the valleys of the Tigris and Euphrates, they encountered mountainous barriers and the then expanded Caspian Sea. And for many generations the Adamites hunted, herded, and tilled the soil around their settlements scattered throughout Turkestan. Slowly this magnificent people extended their territory into Europe. But now the Adamites enter Europe from the east and find the culture of the blue man thousands of years behind that of Asia since this region has been almost entirely out of touch with Mesopotamia.

3. THE CRO-MAGNOID BLUE MAN

80:3.1 (891.2) The ancient centers of the culture of the blue man were located along all the rivers of Europe, but only the Somme now flows in the same channel which it followed during preglacial times.

80:3.2 (891.3) While we speak of the blue man as pervading the European continent, there were scores of racial types. Even thir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European blue races were already a highly blended people carrying strains of both red and yellow, while on the Atlantic coastlands and in the regions of present-day Russia they had absorbed a considerable amount of Andonite blood and to the south were in contact with the Saharan peoples. But it would be fruitless to attempt to enumerate the many racial groups.

80:3.3 (891.4) The European civilization of this early post-Adamic period was a unique blend of the vigor and art of the blue men with the creative imagination of the Adamites. The blue men were a race of great vigor, but they greatly deteriorated the cultu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e Adamites.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latter to impress their religion upon the Cro-Magnoids because of the tendency of so many to cheat and to debauch the maidens. For ten thousand years religion in Europe was at a low ebb as compared with the developments in India and Egypt.

청색인은 모든 거래 관계에서 몹시 정직했으며, 혼합된 **아담족속**의 성적(性的) 악습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순결성을 높이 평가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일부다처제를 허용했다.

이 **크로_마농** 민족들은 용감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인종이었다. 그들은 효과적인 어린이 양육 체제를 유지했다. 부모 양쪽이 이런 수고에 참여했고, 비교적 나이 많은 아이들의 협조가 충분히 활용됐다. 어린이는 각자 동굴에서 보호 받으면서 부싯돌 만들기과 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신중하게 받았다. 여자는 어려서부터 가사(家事)의 기술과 미숙한 농업에 잘 숙달됐고, 한편 남자는 노련한 사냥꾼과 전사(戰士)였다.

청색인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양식을 모았으며; 배 만드는 데서도 숙달됐다. 그들은 돌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베고, 통나무로 오두막을 지었는데, 일부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했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붕을 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아직도 그와 비슷하게 오두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남부 지대의 **크로_마농인**은 대개 돌로 지은 집과 동굴에서 살았다.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밤마다 동굴 입구에 파수꾼을 세움으로써, 얼어 죽는 것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용감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술가였으며; **아담족속**과 혼합됨으로써 창조적 상상력이 갑자기 증진됐다. 청색인의 예술은 약 15,000년 전에 최고로 발달했는데, 짙은 색 피부를 가진 인종들이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이었다.

약 15,000년 전에, **알프스산맥**의 삼림(森林)이 광범하게 퍼져 나갔다. 세계적인 풍성한 사냥터를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바꾼 바로 그 이후의 강요 때문에, **유럽**의 사냥꾼들은 해안과 강변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비바람이 북쪽으로 바뀌자, **유럽**의 광활한 목초지는 삼림으로 뒤덮이게 됐다. 이런 광대하고 비교적 갑작스런 기후 변경으로 인해, **유럽** 인종들은 광활한 평야의 사냥꾼으로부터 목자(牧者)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부(漁夫) 또는 땅을 경작하는 자로 바뀌도록 내몰렸다.

이런 변화가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어떤 생물학적 퇴보를 가져왔다. 그 전에 사냥하던 시대에는, 우수한 부족들이 비교적 고상한 유형의 전쟁 포로와 결혼했고, 그들이 보기에 열등한 사람은 반드시 멸절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로는, 진부한 포로 가운데 다수를 노예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대에 **크로_마농인** 유형 전체를 엄청나게 타락시킨 것은,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이었다. 이런 문화적 퇴보는 동부로부터 새로운 추진력을 받을 때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인**의 마지막 대규모 침입이 **유럽**을 휩쓸어서, **크로_마농** 유형과 문화를 재빨리 흡수하고, 백인종의 문명을 시작했다.

80:3.4 (891.5) The blue men were perfectly honest in all their dealings and were wholly free from the sexual vices of the mixed Adamites. They respected maidenhood, only practicing polygamy when war produced a shortage of males.

80:3.5 (891.6) These Cro-Magnon peoples were a brave and farseeing race. They maintained an efficient system of child culture. Both parents participated in these labors, and the services of the older children were fully utilized. Each child was carefully trained in the care of the caves, in art, and in flint making. At an early age the women were well versed in the domestic arts and in crude agriculture, while the men were skilled hunters and courageous warriors.

80:3.6 (891.7) The blue men were hunters, fishers, and food gatherers; they were expert boatbuilders. They made stone axes, cut down trees, erected log huts, partly below ground and roofed with hides. And there are peoples who still build similar huts in Siberia. The southern Cro-Magnons generally lived in caves and grottoes.

80:3.7 (892.1) It was not uncommon during the rigors of winter for their sentinels standing on night guard at cave entrances to freeze to death. They had courage, but above all they were artists; the Adamic mixture suddenly accelerated creative imagination. The height of the blue man's art was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before the days when the darker-skinned races came north from Africa through Spain.

80:3.8 (892.2)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the Alpine forests were spreading extensively. The European hunters were being driven to the river valleys and to the seashores by the same climatic coercion that had turned the world's happy hunting grounds into dry and barren deserts. As the rain winds shifted to the north, the great open grazing lands of Europe became covered by forests. These great and relatively sudden climatic modifications drove the races of Europe to change from open-space hunters to herders, and in some measure to fishers and tillers of the soil.

80:3.9 (892.3) These changes, while resulting in cultural advances, produced certain biologic retrogressions. During the previous hunting era the superior tribes had intermarried with the higher types of war captives and had unvaryingly destroyed those whom they deemed inferior. But as they commenced to establish settlements and engage in agriculture and commerce, they began to save many of the mediocre captives as slaves. And it was the progeny of these slaves that subsequently so greatly deteriorated the whole Cro-Magnon type. This retrogression of culture continued until it received a fresh impetus from the east when the final and en masse invasion of the

4. 유럽의 안드족속 침입

안드족속이 한결같은 흐름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주요 침입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말을 타고 들어갔다. 더러는 **에게 해**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 **다뉴브강** 유역으로 **유럽**에 들어갔으나, 그보다 일찍 있었던 더 순수한 핏줄 가운데 대다수는, **볼가 강**과 **돈 강**이 있는 목초지를 건너는 북쪽 길을 통해서 북서부 **유럽**으로 이주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 사이에, **러시아**의 강들과 **발틱 해**의 길을 통해서 **시베리아**로부터 온, 한 때의 **안드족속**이 북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안드족속** 부족들과 즉시 동화됐다.

그보다 일찍 있었던 더 순수한 보라색 인종의 확장은, 나중에 어느 정도 군사적이고 정복하기 좋아하는 **안드족속** 후손의 확장보다 훨씬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아담족속**은 평화를 사랑했지만; **노드족속**은 호전적이었다. 이 두 혈통의 결합은, 나중에 **상익** 인종들과 섞이면서, 실제 군사 정복을 이룩한 유능하고 공격적인 **안드족속**을 형성했다.

그러나 **서양**에서 **안드족속**이 지배하도록 결정된 진화 요인은 말(馬)이었다. 흠여지던 **안드족속**은, 말 때문에,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기동력을 갖추게 됐는데, **안드족속** 기마병들의 마지막 집단은 재빨리 **카스피 해**를 돌아서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안드족속** 인파는 너무 느린 속도로 이뤄졌으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멀어진 인파는 모두 와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후대의 인파는, 매우 빨리 이동했으므로 단결된 집단을 이루면서 **유럽**에 도착했고, 어느 정도 더 높은 문화를 여전히 간직했다.

기원전 7000년부터 2천 년 동안, 맹렬하게 달리는 **안드족속** 기마병들이 출현했을 때, **중국**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 외에 전체 인간거주 세계는, 매우 제한된 문화 진보를 1만 년 동안 이룩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색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은 흡수하고 가장 퇴보된 사람은 멸절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혼합됐다. 이들은, 소위 **노르딕** 인종의 조상, 즉 **스칸디나비아**, **게르만**, 및 **앵글로색슨** 민족들의 선조였다.

오래지 않아서, 우세한 청색 종족들이 북부 **유럽** 전역에서 **안드족속**에게 완전히 흡수됐다. 오직 **라플란드**에서만(그리고 **브리타니**에서 어느 정

Mesopotamians swept over Europe, quickly absorbing the Cro-Magnon type and culture and initiating the civilization of the white races.

4. THE ANDITE INVASIONS OF EUROPE

80:4.1 (892.4) While the Andites poured into Europe in a steady stream, there were seven major invasions, the last arrivals coming on horseback in three great waves. Some entered Europe by way of the islands of the Aegean and up the Danube valley, but the majority of the earlier and purer strains migrated to northwestern Europe by the northern route across the grazing lands of the Volga and the Don.

80:4.2 (892.5)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invasions a horde of Andonites entered Europe from the north, having come from Siberia by way of the Russian rivers and the Baltic. They were immediately assimilated by the northern Andite tribes.

80:4.3 (892.6) The earlier expansions of the purer violet race were far more pacific than were those of their later semimilitary and conquest-loving Andite descendants. The Adamites were pacific; the Nodites were belligerent. The union of these stocks, as later mingled with the Sangik races, produced the able, aggressive Andites who made actual military conquests.

80:4.4 (892.7) But the horse was the evolutionary factor which determined the dominance of the Andites in the Occident. The horse gave the dispersing Andites the hitherto nonexistent advantage of mobility, enabling the last groups of Andite cavalymen to progress quickly around the Caspian Sea to overrun all of Europe. All previous waves of Andites had moved so slowly that they tended to disintegrate at any great distance from Mesopotamia. But these later waves moved so rapidly that they reached Europe as coherent groups, still retaining some measure of higher culture.

80:4.5 (893.1) The whole inhabited world, outside of China and the Euphrates region, had made very limited cultural progress for ten thousand years when the hard-riding Andite horsemen made their appearance in the sixth and seventh millenniums before Christ. As they moved westward across the Russian plains, absorbing the best of the blue man and exterminating the worst, they became blended into one people. These were the ancestors of the so-called Nordic races, the forefathers of the Scandinavian, German, and Anglo-Saxon peoples.

80:4.6 (893.2) It was not long before the superior blue strains had been fully absorbed by the Andites throughout all northern Europe. Only in Lapland

도) 옛 **안돈족속**이 비슷한 정도만이라도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and to a certain extent in Brittany) did the older Andonites retain even a semblance of identity.

5. 안드족속의 북유럽 정복

5. THE ANDITE CONQUEST OF NORTHERN EUROPE

북 **유럽**의 부족들은, **투르케스탄** 남쪽 **러시아** 지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 보강되고 증진됐으며, 마지막 **안드족속** 기병대(騎兵隊)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는, **안드족속** 유전형질을 지닌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숫자보다 그 지역에 이미 더 많이 있었다.

80:5.1 (893.3) The tribes of northern Europe were being continuously reinforced and upstepped by the steady stream of migrants from Mesopotamia through the Turkestan-south Russian regions, and when the last waves of Andite cavalry swept over Europe, there were already more men with Andite inheritance in that region than were to be found in all the rest of the world.

이 3천 년 동안, 북부에 있는 **안드족속**의 군사 본부는 **덴마크**에 있었다. 이 중심지에서 정복의 물결이 잇따라 퍼져 나갔는데, **메소포타미아인** 정복자들과 피정복 민족들이 여러 세기(世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안드족속**은 점점 줄어들고 백인이 점점 많아졌다.

80:5.2 (893.4) For three thousand years the military headquarters of the northern Andites was in Denmark. From this central point there went forth the successive waves of conquest, which grew decreasingly Andite and increasingly white as the passing centuries witnessed the final blending of the Mesopotamian conquerors with the conquered peoples.

청색인은 북쪽 지역에서 흡수됐고, 결국 남쪽을 침투한 백인 기병대 침략자들에게 굴복 당한 반면에, 백인종과 혼합된 진보된 부족들은 **크로_마농인**의 완강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받게 됐지만, 그들은 뛰어난 지성과 계속 축적(蓄積)되는 생물학적 비축물에 힘입어서, 그 전에 있던 인종을 전멸시켰다.

80:5.3 (893.5) While the blue man had been absorbed in the north and eventually succumbed to the white cavalry raiders who penetrated the south, the advancing tribes of the mixed white race met with stubborn and protracted resistance from the Cro-Magnons, but superior intelligence and ever-augmenting biologic reserves enabled them to wipe the older race out of existence.

백색인과 청색인 사이의 결정적 투쟁은 **솜므** 강 유역에서 벌어졌다. 여기서, 전성기에 도달한 청인종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안드족속**과 심한 투쟁을 벌였고, 이 **크로_마농인**은 백색 침입자들의 탁월한 전술(戰術) 앞에 굴복 당하기까지, 500년 넘는 동안 자기 영토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솜므** 강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북쪽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거둔 **소르**는 북부 백색 부족들의 영웅이 됐으며,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를 신(神)으로 숭배했다.

80:5.4 (893.6) The decisive struggles between the white man and the blue man were fought out in the valley of the Somme. Here, the flower of the blue race bitterly contested the southward-moving Andites, and for over five hundred years these Cro-Magnoids successfully defended their territories before succumbing to the superior military strategy of the white invaders. Thor, the victorious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orth in the final battle of the Somme, became the hero of the northern white tribes and later on was revered as a god by some of them.

가장 오래 유지된 청색인 본거지(本據地)는 남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지막 극심한 군사적 저항은 **솜므** 강 주변에서 무너졌다. 후대의 정복은, 강(江)을 따라서 상업의 침투와 과도한 인구증가 때문에, 그리고 열등한 인종을 냉혹하게 멸절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인종과 계속 서로 결혼함으로써 인해 진행됐다.

80:5.5 (893.7) The strongholds of the blue man which persisted longest were in southern France, but the last great military resistance was overcome along the Somme. The later conquest progressed by commercial penetration, population pressure along the rivers, and by continued intermarriage with the superiors, coupled with the ruthless extermination of the inferiors.

안드족속 원로(元老)들로 구성된 부족 협의회가, 열등한 포로에 대해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포로는 공들인 예식을 거쳐서 샤만 사제(司祭)에게 넘겨졌고, 그 사제는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가서 “행복한 사냥터”로 들어가는--곧 익사(溺死)시키는-- 제례를 집행했다. **유럽**의 백색 침입자들은, 자체의 대열로 빨리 흡수되지 않고 대항하

80:5.6 (893.8) When the tribal council of the Andite elders had adjudged an inferior captive to be unfit, he was, by elaborate ceremony, committed to the shaman priests, who escorted him to the river and administered the rites of initiation to the “happy hunting grounds” — lethal submergence. In this way the white invaders of Europe exterminated all

는 모든 민족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멸절시켰으며, 청색인은 그렇게 해서--그리고 빠른 속도로--멸종됐다.

크로_마농 청색인은 현대의 **유럽** 인종들의 생물학적 기초를 이뤘지만, 후대에 그들의 본거지를 정복한 강건한 사람들에게 흡수됨으로써만 살아남게 됐다. 청색 종족은 **유럽**의 백인종에게 역센 특징과 육체의 생기를 많이 제공했지만, 피가 섞인 **유럽** 사람들의 유머와 상상력은 **안드족속**으로부터 얻었다. 이런 **안드족속**과 청색인의 결합이 결국 북부 지역의 백인종이 됐고, 즉시 **안드족속** 문명의 쇠퇴, 일시적 성질의 둔화를 초래했다. 결국, 이 북부 야만인의 잠재적 우수성이 나타났고, 오늘날 **유럽** 문명에서 절정에 달하게 됐다.

기원전 5000년경에, 진화하는 백인종이, **독일**과 북부 **프랑스** 그리고 **영국 제도**(諸島)를 포함하는 북부 **유럽** 전체를 지배했다. 청색인과 얼굴이 둥근 **안돈족속**이 중부 **유럽**을 한동안 장악했다. 후자(後者)는 주로 **다뉴브** 강 유역에 자리 잡았고, **안드족속**에게 완전히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 나일 강 근처의 안드족속

마지막 **안드족속**의 이주가 발생된 시기부터, 문화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문명의 중심지는 **나일** 강 유역으로 바뀌었다. **이집트**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진보된 집단의 본부로서, **메소포타미아**를 계승했다.

나일 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유역보다 약간 먼저 홍수를 겪기 시작했지만,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초기 퇴보는, **안드족속**이 계속 이주해 들어옴으로 보충되기도 남았으며, 그래서 **이집트** 문화가 실제로는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유래했지만 서서히 선두로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홍수기 동안에, **이집트**에는 독특한 일곱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집단 외에는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마지막 탈출이 발생했을 때, **이집트**는 가장 숙련된 예술가와 기능공을 많이 받아들이는 행운을 얻었다. 이 **안드족속** 기능공들은, 강가의 생활과 홍수 그리고 관개(灌溉)와 건조한 계절 등에 완전히 익숙했으므로, 마치 고향에 있는 듯이 매우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보호된 **나일** 강 유역의 혜택을 누렸는데,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을 때보다는, 적으로부터 습격과 공격을 훨씬 적게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의 금속 가공 솜씨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들은 **흑해** 지역 대신 **시나이 산**에서 가져오는 철광석을 여기서 가공했다.

peoples encountered who were not quickly absorbed into their own ranks, and thus did the blue man come to an end — and quickly.

80:5.7 (893.9) The Cro-Magnoid blue man constituted the biologic foundation for the modern European races, but they have survived only as absorbed by the later and virile conquerors of their homelands. The blue strain contributed many sturdy traits and much physical vigor to the white races of Europe, but the humor and imagination of the blended European peoples were derived from the Andites. This Andite-blue union, resulting in the northern white races, produced an immediate lapse of Andite civilization, a retardation of a transient nature. Eventually, the latent superiority of these northern barbarians manifested itself and culminated in present-day European civilization.

80:5.8 (894.1) By 5000 B.C. the evolving white races were dominant throughout all of northern Europe, including northern Germany, northern France, and the British Isles. Central Europe was for some time controlled by the blue man and the round-headed Andonites. The latter were mainly situated in the Danube valley and were never entirely displaced by the Andites.

6. THE ANDITES ALONG THE NILE

80:6.1 (894.2) From the times of the terminal Andite migrations, culture declined in the Euphrates valley, and the immediate center of civilization shifted to the valley of the Nile. Egypt became the successor of Mesopotamia as the headquarters of the most advanced group on earth.

80:6.2 (894.3) The Nile valley began to suffer from floods shortly before the Mesopotamian valleys but fared much better. This early setback was more than compensated by the continuing stream of Andite immigrants, so that the culture of Egypt, though really derived from the Euphrates region, seemed to forge ahead. But in 5000 B.C., during the flood period in Mesopotamia, there were seven distinct groups of human beings in Egypt; all of them, save one, came from Mesopotamia.

80:6.3 (894.4) When the last exodus from the Euphrates valley occurred, Egypt was fortunate in gaining so many of the most skillful artists and artisans. These Andite artisans found themselves quite at home in that they were thoroughly familiar with river life, its floods, irrigations, and dry seasons. They enjoyed the sheltered position of the Nile valley; they were there much less subject to hostile raids and attacks than along the Euphrates. And they added greatly to the metalworking skill of the Egyptians. Here they worked iron ores coming from Mount Sinai instead of from the Black Sea regions.

이집트인은 도시마다 다른 신격들을 매우 일찍부터 모아서, 하나의 정교한 국가적 신(神)들의 체계를 세웠다. 그들은 광범한 신학 체계를 개발했고, 똑같이 광범하지만 부담 주는 제사장체제를 갖췄다. 몇 명의 다른 지도자는, **센족속**의 초기 종교 교훈 중에서 남은 것을 되살리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안드족속**이 **이집트**에서 최초의 석조(石造) 건물을 지었다. 돌로 지은 **피라미드** 가운데 처음 건축되고 가장 절묘한 것은, **안드족속** 건축술의 천재였던 **임호텝**이 세웠으며, 그가 수상(首相)으로 일할 때였다. 그 전에 세워진 건물들은 벽돌을 이용했고,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는 돌로 지은 건축물이 많이 세워졌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건축 기술은, 이 위대한 건축가가 활동하던 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했다.

이런 찬란한 문화 시기는 **나일** 강 주변의 내란(內亂)으로 인해 중단됐고, **메소포타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는 황폐한 **아라비아**에서 온 열등한 부족들과 남쪽에서 온 흑색인들로 곧 들끓었다. 그 결과로, 사회적 진보는 500년 넘는 동안 꾸준히 퇴보했다.

7. 지중해 섬들의 안드족속

메소포타미아에서 문화가 퇴보하는 동안에, **지중해** 동부에 있는 여러 섬에서 우수한 문명이 얼마 동안 지속됐다.

기원전 12,000년 무렵에, **안드족속**의 한 총명한 부족이 **크레테 섬**으로 이주했다. 이 섬은 그런 우수한 집단이 그토록 초기에 정착한 유일한 섬이었고, 거의 2천 년이 지나서야, 이 항해자들의 후손이 인접된 섬들로 퍼져 나갔다. 이 집단은 얼굴이 좁고, 키가 작은 **안드족속**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노족속**의 **반족속** 계열과 섞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키가 6피트 미만이었으며, 그들보다 키가 크고 열등한 동료들에게 글자 그대로 본토에서 밀려났다. **크레테 섬**으로 이주한 이 사람들은, 옷감 짜기, 금속 가공, 도예술, 배수시설, 그리고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데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글쓰기에 종사했고 목축업과 농사짓는 일을 했다.

그들이 **크레테 섬**에 정착한 후 거의 2천 년이 흐른 뒤에, 키가 큰 **아담선** 후손 중에서 한 무리가 북부 지역의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갔는데,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고향으로부터 거의 직접 내려왔다. **아담선**과 **라타**의 직계 후손인 **사토**가, **그리스인**의 선조인 이 사람들을 서쪽으로 인도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정착한 이 집단은 375 명으로 구성됐는데, **아담선족속**의 두 번째 문명의

80:6.4 (894.5) The Egyptians very early assembled their municipal deities into an elaborate national system of gods. They developed an extensive theology and had an equally extensive but burdensome priesthood. Several different leaders sought to revive the remnants of the early religious teachings of the Sethites, but these endeavors were short-lived. The Andites built the first stone structures in Egypt. The first and most exquisite of the stone pyramids was erected by Imhotep, an Andite architectural genius, while serving as prime minister. Previous buildings had been constructed of brick, and while many stone structures had been erec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is was the first in Egypt. But the art of building steadily declined from the days of this great architect.

80:6.5 (894.6) This brilliant epoch of culture was cut short by internal warfare along the Nile, and the country was soon overrun, as Mesopotamia had been, by the inferior tribes from inhospitable Arabia and by the blacks from the south. As a result, social progress steadily declined for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7. ANDITES OF THE MEDITERRANEAN ISLES

80:7.1 (895.1) During the decline of culture in Mesopotamia there persisted for some time a superior civilization on the island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80:7.2 (895.2) About 12,000 B.C. a brilliant tribe of Andites migrated to Crete. This was the only island settled so early by such a superior group, and it was almost two thousand years before the descendants of these mariners spread to the neighboring isles. This group were the narrow-headed, smaller-statured Andites who had intermarried with the Vanite division of the northern Nodites. They were all under six feet in height and had been literally driven off the mainland by their larger and inferior fellows. These emigrants to Crete were highly skilled in textiles, metals, pottery, plumbing, and the use of stone for building material. They engaged in writing and carried on as herders and agriculturists.

80:7.3 (895.3) Almost two thousand years after the settlement of Crete a group of the tall descendants of Adamson made their way over the northern islands to Greece, coming almost directly from their highland home north of Mesopotamia. These progenitors of the Greeks were led westward by Sato, a direct descendant of Adamson and Ratta.

80:7.4 (895.4) The group which finally settled in Greece consisted of three hundred and seventy-five of the selected and superior people

마지막을 장식한, 선택되고 우수한 민족이었다. **아담선**의 이 후대 자손은, 신흥{新興} 백인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인 계층이었고, 육체적으로도 호감을 샀는데, 첫 **에덴** 시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리스와 **에게해 제도**{諸島} 지역은, 이윽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뒤를 이어서, **서양**의 무역, 예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아담선족속** 선구자들의 문화를 제외하고, **에게해** 지방의 모든 예술과 과학 역시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다. 이 **그리스**의 **아담선족속** 민족의 모든 예술과 천재성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 **아담선**과, 그의 비범한 둘째 부인 사이에서 생긴 자손의 직접 유산이었는데, 그 부인은 **캘리개스차 왕자**의 순수한 **노드족속** 참모로부터 이어진 혈통을 이어받은 딸이었다. **그리스인**이, 자신들은 신들과 초인적 존재들로부터 탄생된 직계 후손이라고 여기는 신화{神話}의 전승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에게해 지역은 다섯 차례에 걸친 뚜렷한 문화 단계를 지나왔는데, 단계가 지날 때마다 영적 수준이 저하됐고, **그리스**의 후기 세대들이 **다뉴브** 지역에서 사들인 노예의 진부한 후손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한 압력에 눌려서, 마지막으로 영화롭던 시대는 머지않아 소멸됐다.

가인의 후손의 어머니 **승배 종파**{宗派}가 최고로 유행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크레테 섬**에서였다. 이 종파는 **이브**를 “대모{大母}”로 숭배하면서 **이브**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브**의 형상이 도처에 있었다. 대중을 위한 수천 개의 신전이 **크레테 섬**과 **소아시아** 전역에 세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 종파는 **그리스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는, **예수**의 이 세상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숭배한다는 구실로, 초기 **그리스도교**와 합쳐졌다.

기원전 6500년 무렵까지, **안드족속**의 영적 유산에 큰 퇴보가 계속됐다. 이 **아담** 후손은 광범하게 흩어졌고, 더 오래되고 숫자가 많은 인간 종족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안드족속** 문명의 이런 쇠퇴는, 그들의 종교 기준이 사라짐과 함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세상 종족들을, 영적{靈的}으로 가난한 처지에 내버려뒀다.

기원전 5000년까지, 3개의 가장 순수한 **아담** 후손 종족이, **수메르**, 북부 **유럽**, 및 **그리스**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는, **아라비아**에서 스며들어 오는 혼합되고 짙은 색 종족들의 인파 때문에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열등한 사람들의 도래는, **안드족속**의 생물학적 및 문화적 잔재가 더 널리 흩어지도록 기여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에서, 더 모험심 많은 민족들이 서쪽으로 쏠아져 나와서 여러 섬으로 들어갔다. 이 이

comprising the end of the second civilization of the Adamsonites. These later sons of Adamson carried the then most valuable strains of the emerging white races. They were of a high intellectual order and, physically regarded, the most beautiful of men since the days of the first Eden.

80:7.5 (895.5) Presently Greece and the Aegean Islands region succeeded Mesopotamia and Egypt as the Occidental center of trade, art, and culture. But as it was in Egypt, so again practically all of the art and science of the Aegean world was derived from Mesopotamia except for the culture of the Adamsonite forerunners of the Greeks. All the art and genius of these latter people is a direct legacy of the posterity of Adamson, the first son of Adam and Eve, and his extraordinary second wife, a daughter descended in an unbroken line from the pure Nodite staff of Prince Caligastia. No wonder the Greeks had mythological traditions that they were directly descended from gods and superhuman beings.

80:7.6 (895.6) The Aegean region passed through five distinct cultural stages, each less spiritual than the preceding, and erelong the last glorious era of art perished beneath the weight of the rapidly multiplying mediocre descendants of the Danubian slaves who had been imported by the later generations of Greeks.

80:7.7 (895.7) It was during this age in Crete that the *mother cult* of the descendants of Cain attained its greatest vogue. This cult glorified Eve in the worship of the “great mother.” Images of Eve were everywhere. Thousands of public shrines were erected throughout Crete and Asia Minor. And this mother cult persisted on down to the times of Christ, becoming later incorporated in the early Christian religion under the guise of the glorification and worship of Mary the earth mother of Jesus.

80:7.8 (895.8) By about 6500 B.C. there had occurred a great decline in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Andites. The descendants of Adam were widely dispersed and had been virtually swallowed up in the older and more numerous human races. And this decadence of Andite civilization, together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ir religious standards, left the spiritually impoverished races of the world in a deplorable condition.

80:7.9 (896.1) By 5000 B.C. the three purest strains of Adam’s descendants were in Sumeria, northern Europe, and Greece. The whole of Mesopotamia was being slowly deteriorated by the stream of mixed and darker races which filtered in from Arabia. And the coming of these inferior peoples contributed further to the scattering abroad of the biologic and cultural residue of the Andites. From all over the fertile crescent the more adventurous

주민은 곡식과 채소를 재배했고, 길들인 동물을 데려왔다.

기원전 5000년 무렵에, 진취적인 **메소포타미아인**의 강력한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서 **키프러스** 섬에 정착했는데, 이 문명은 2천 년 정도 지난 후에, 북쪽에서 들어온 야만적인 유랑민 무리에게 파괴당했다.

또 다른 거대한 이주민이, 후대의 **카르타고** 지역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 정착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많은 숫자의 **안드족속**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일찍이 **에게 제도**에서 **이탈리아**로 들어갔던 그들의 동족과 **스위스**에서 섞였다.

이집트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의 퇴보를 답습할 때, 매우 유능하고 진보를 이룩한 여러 가족이 **크레테 섬**으로 피신했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진보된 이 문명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열등한 집단들이 들어와서 **크레테 섬**의 문명이 위협 당하자, 문화가 매우 발달된 가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로 들어갔다.

그리스인은 위대한 선생과 예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인과 식민지 개척자였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과 상업을 삼켜버린 열등한 인파에 결국 압도당하게 되기 전에는, 성공적으로 많은 문화 전초기지를 서쪽 방향에 세웠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 문명에서 엄청난 진보가 남부 **유럽**의 후대 민족들 속에 계속 이뤄졌고, 이런 **아담선족속**의 혼합된 후손 중에서 다수는 주변에 있는 대륙{大陸}의 여러 부족에게 합병됐다.

peoples poured westward to the islands. These migrants cultivated both grain and vegetables, and they brought domesticated animals with them.

80:7.10 (896.2) About 5000 B.C. a mighty host of progressive Mesopotamians moved out of the Euphrates valley and settled upon the island of Cyprus; this civilization was wiped out about two thousand years subsequently by the barbarian hordes from the north.

80:7.11 (896.3) Another great colony settled on the Mediterranean near the later site of Carthage. And from north Africa large numbers of Andites entered Spain and later mingled in Switzerland with their brethren who had earlier come to Italy from the Aegean Islands.

80:7.12 (896.4) When Egypt followed Mesopotamia in cultural decline, many of the more able and advanced families fled to Crete, thus greatly augmenting this already advanced civilization. And when the arrival of inferior groups from Egypt later threatened the civilization of Crete, the more cultured families moved on west to Greece.

80:7.13 (896.5) The Greeks were not only great teachers and artists, they were also the world's greatest traders and colonizers. Before succumbing to the flood of inferiority which eventually engulfed their art and commerce, they succeeded in planting so many outposts of culture to the west that a great many of the advances in early Greek civilization persisted in the later peoples of southern Europe, and many of the mixed descendants of these Adamsonites became incorporated in the tribes of the adjacent mainlands.

8. 다뉴브 강의 안돈족속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안드족속** 민족 중에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청색인과 섞였고,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하라인** 및 남부의 청색인과 섞였다. 그리고 백인종의 이 두 부류는, 당시에, 그리고 현재에도, 이 중심 지역들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초기 **안돈족속** 부족 중에서, 산악 지역에 살아남은 얼굴이_넓적한 사람들로 인해 널리 흩어졌다.

이 **안돈** 후손은 중부와 남부 **유럽**의 산악지대 대부분으로 분산됐다.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도착된 사람들로 인해 종종 보충됐는데, 그들은 상당한 세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했다. 고대의 **헷족속**은 **안돈족속** 혈통에서 직접 기원했으며; 그들의 창백한 피부와 넓적한 얼굴이 그 종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 종족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낳았고, 그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후손의 독특한 얼굴 모양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후손은 **안드족속**으로부터 유래된 문화와 종교를 간직하면서, 확

8. THE DANUBIAN ANDONITES

80:8.1 (896.6) The Andite peoples of the Euphrates valley migrated north to Europe to mingle with the blue men and west into the Mediterranean regions to mix with the remnants of the commingled Saharans and the southern blue men. And these two branches of the white race were, and now are, widely separated by the broad-headed mountain survivors of the earlier Andonite tribes which had long inhabited these central regions.

80:8.2 (896.7) These descendants of Andon were dispersed through most of the mountainous regions of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They were often reinforced by arrivals from Asia Minor, which region they occupied in considerable strength. The ancient Hittites stemmed directly from the Andonite stock; their pale skins and broad heads were typical of that race. This strain was carried in Abraham's ancestry and contributed much to the characteristic facial appearance of his

실히 색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의 언어는 **안돈족속**과 뚜렷이 일치했다.

이태리, 스위스, 및 남부 유럽의 호수에서, 퇴적지{堆積地} 또는 통나무 방파제 위에 세운 집에 거주한 부족들은, **아프리카인, 에게 해** 사람들, 그리고 특히 **다뉴브** 이주민의 확장하는 결가지였다.

다뉴브인은 **안돈족속**이었고, **발칸**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농부와 목동이었으며, **다뉴브** 강 유역을 따라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질그릇을 만들었고 땅을 경작했으며 계곡에서 살기를 선호했다. **다뉴브인**의 가장 북쪽 거주지는 **벨기에**의 **리지**에 있었다. 이 부족들은, 자신의 문화적 중심지와 근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함에 따라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최고의 질그릇은 비교적 초기 정착지의 작품이다.

다뉴브인은 **크레테**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한 결과로 어머니 숭배자가 됐다. 이 부족들은 작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 해안에서 온 **안돈족속** 항해자들과 나중에 혼합됐는데, 그들 역시 어머니 숭배자였다. 그리하여 중앙 **유럽** 대부분에는, 얼굴이_넓적한 백인종의 혼합된 유형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그들은 어머니 숭배, 그리고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종교 제례를 신봉했는데, 어머니 숭배 종파에서는 죽은 사람을 돌 움막에서 태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9. 세 백인종

안돈족속의 이주가 끝나게 되면서, **유럽**에서 인종적 혼합은 다음과 같은 세 백인종으로 정리됐다:

1. 북부의 백인종. 소위 **노르딕** 종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청색인과 **안돈족속**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안돈족속** 핏줄이 섞였고, 홍색과 황색의 **상익**도 비슷한 양으로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북부의 백인종은, 이 네 가지 가장 바람직한 인간 혈통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전자가 청색인으로부터 왔다. 전형적인 초기 **노르딕인**은 얼굴이_길쭉하고 키가 컸으며 금발이었다. 그렇지만 이 인종은 오래 전에 백색 민족의 모든 지류{支流}와 완전히 혼합됐다.

침입하는 **노르딕인**이 마주친 **유럽**의 원시 문화는, 청색인과 피가 섞인, 퇴화하는 **다뉴브인**이 이룩한 것이었다. 오늘날 **독일**에서 두 인종 집단의 실존이 증언하다시피, **노르딕_덴마크** 문화와 **다뉴브_안돈족속** 문화는 **라인** 강에서 만나서 섞였다.

노르딕인은 **발틱해** 해안에서 호박{琥珀}을 채

later Jewish descendants who, while having a culture and religion derived from the Andites, spoke a very different language. Their tongue was distinctly Andonite.

80:8.3 (897.1) The tribes that dwelt in houses erected on piles or log piers over the lakes of Italy, Switzerland, and southern Europe were the expanding fringes of the African, Aegean, and, more especially, the Danubian migrations.

80:8.4 (897.2) The Danubians were Andonites, farmers and herders who had entered Europe through the Balkan peninsula and were moving slowly northward by way of the Danube valley. They made pottery and tilled the land, preferring to live in the valleys. The most northerly settlement of the Danubians was at Liege in Belgium. These tribes deteriorated rapidly as they moved away from the center and source of their culture. The best pottery is the product of the earlier settlements.

80:8.5 (897.3) The Danubians became mother worshipers as the result of the work of the missionaries from Crete. These tribes later amalgamated with groups of Andonite sailors who came by boats from the coast of Asia Minor, and who were also mother worshipers. Much of central Europe was thus early settled by these mixed types of the broad-headed white races which practiced mother worship and the religious rite of cremating the dead, for it was the custom of the mother cultists to burn their dead in stone huts.

9. THE THREE WHITE RACES

80:9.1 (897.4) The racial blends in Europe toward the close of the Andite migrations became generalized into the three white races as follows:

80:9.2 (897.5) 1. *The northern white race.* This so-called Nordic race consisted primarily of the blue man plus the Andite but also contained a considerable amount of Andonite blood, together with smaller amounts of the red and yellow Sangik. The northern white race thus encompassed these four most desirable human stocks. But the largest inheritance was from the blue man. The typical early Nordic was long-headed, tall, and blond. But long ago this race became thoroughly mixed with all of the branches of the white peoples.

80:9.3 (897.6) The primitive culture of Europe, which was encountered by the invading Nordics, was that of the retrograding Danubians blended with the blue man. The Nordic-Danish and the Danubian-Andonite cultures met and mingled on the Rhine as is witnessed by the existence of two racial groups in Germany today.

80:9.4 (897.7) The Nordics continued the trade in

속 매매했는데, **다뉴브** 강 유역에 사는, 얼굴이 넓직한 사람들과 **브렌너 통로**를 통해서 큰 교역을 이뤘다. **다뉴브인**과의 이런 광범한 접촉으로 인해, 이 북부 지역 사람들이 어머니를 숭배하게 됐고,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시행됐다. **유럽** 전역에 매장 풍습이 있었음에도, 초기 백인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돌과 진흙으로 만든 납골{納骨} 단지 속에서 그 재만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이 백색인은 집을 건축했고; 결코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백색인의 초기 문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에 반해, 그 전에 있었던 **크로 마농인** 유형은 동굴과 석굴 속에 밀봉되어 잘 간직돼 왔다. 이를테면, 한때 **유럽** 북부 지역에는 퇴보하는 **다뉴브인**과 청색인의 원시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매우 우수한 백색인 문화가 있었다.

2. **중부의 백인종**. 이 집단은, 청색, 황색, 및 **안드족속**의 혈통을 포함하지만, 주로 **안돈족속**이다. 이 민족은 얼굴이 넓적하고 가무잡잡하며 땅딸막하다. 그들은 **노르딕** 종족과 **지중해**의 종족 사이에 쐐기처럼 박혔는데, 넓은 하부{下部}는 **아시아**에 자리 잡고, 그 꼭대기는 **프랑스** 동부를 파고들었다.

거의 2만 년 동안, **안돈족속**은 **안드족속**에게 점점 더 멀리 중앙 **아시아** 북쪽으로 밀려났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 때문에, 이 **안돈족속**이 **투르케스탄**으로 돌아왔다. 이 **안돈족속**은 1,000년 이상 계속 남쪽으로 밀려왔는데, **카스피해**와 **흑해** 부근에서 나뉘어, **발칸**과 **우크라이나** 두 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 침입에는 **아담선**의 자손 중에서 남은 집단들이 포함됐으며, 그 침입 기간의 하반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란 안드족속**뿐 아니라, **셀족속** 제사장들의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도 동행했다.

기원전 2500년까지, **안돈족속** 중에서 서쪽 방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유럽**에 이르렀다. 그리고 **투르케스탄** 언덕에 있던 야만인이, **메소포타미아** 전역{全域}, **소아시아**, 그리고 **다뉴브** 분지에 들끓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문화적 퇴보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퇴보가 일어났다. 이 침입자들은 중앙 **유럽**에 있는 종족들의 성품을 분명히 **안돈족속**과 비슷하도록 만들었는데, **알프스인** 특징을 지닌 채로 남았다.

3. **남부의 백인종**. 거무스름한 이 **지중해** 인종은 **안드족속**과 청색인의 혼혈로 이뤄졌는데, **안돈족속**의 혈통이 북쪽보다 적게 들어 있었다. 또한 이 집단은, **사하라인**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2차 **상익** 핏줄을 흡수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남부 백인종 집단에, **지중해** 동부로부터 전달된 강력한 **안드족속** 요소들이 주입됐다.

아무튼, **지중해**의 근해{近海} 지역들은, 기원

amber from the Baltic coast, building up a great commerce with the broadheads of the Danube valley via the Brenner Pass. This extended contact with the Danubians led these northerners into mother worship, and for several thousands of years cremation of the dead was almost universal throughout Scandinavia. This explains why remains of the earlier white races, although buried all over Europe, are not to be found — only their ashes in stone and clay urns. These white men also built dwellings; they never lived in caves. And again this explains why there are so few evidences of the white man's early culture, although the preceding Cro-Magnon type is well preserved where it has been securely sealed up in caves and grottoes. As it were, one day in northern Europe there is a primitive culture of the retrogressing Danubians and the blue man and the next that of a suddenly appearing and vastly superior white man.

80:9.5 (897.8) 2. *The central white race.* While this group includes strains of blue, yellow, and Andite, it is predominantly Andonite. These people are broad-headed, swarthy, and stocky. They are driven like a wedge between the Nordic and Mediterranean races, with the broad base resting in Asia and the apex penetrating eastern France.

80:9.6 (898.1) For almost twenty thousand years the Andonites had been pushed farther and farther to the north of central Asia by the Andites. By 3000 B.C. increasing aridity was driving these Andonites back into Turkestan. This Andonite push southward continued for over a thousand years and, splitting around the Caspian and Black seas, penetrated Europe by way of both the Balkans and the Ukraine. This invasion included the remaining groups of Adamson's descendants an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invasion period, carried with it considerable numbers of the Iranian Andites as well as many of the descendants of the Sethite priests.

80:9.7 (898.2) By 2500 B.C. the westward thrust of the Andonites reached Europe. And this overrunning of all Mesopotamia, Asia Minor, and the Danube basin by the barbarians of the hills of Turkestan constituted the most serious and lasting of all cultural setbacks up to that time. These invaders definitely Andonized the character of the central European races, which have ever since remained characteristically Alpine.

80:9.8 (898.3) 3. *The southern white race.* This brunet Mediterranean race consisted of a blend of the Andite and the blue man, with a smaller Andonite strain than in the north. This group also absorbed a considerable amount of secondary Sangik blood through the Saharans. In later times this southern division of the white race was infused by strong Andite elements from the eastern Mediterranean.

80:9.9 (898.4) The Mediterranean coastlands did not,

전 2500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목민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안드족속**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유목민이 동부 **지중해** 구역들을 침입했을 때, 육상{陸上} 통행과 거래는, 이때 수세기 동안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 이런 육상 교통의 방해로 인해, 해상 통행과 거래가 크게 확장됐으며, **지중해**의 해상{海上} 무역은 약 4,500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 교통이 발전한 결과로, **지중해** 분지의 연안{沿岸} 지역에 두루, **안드족속** 후손이 갑작스럽게 확산됐다.

이런 인종 혼합은, 남부 **유럽** 인종으로 하여금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혼합되게 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인종은 더 심한 혼합을 겪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_황색 **안드족속**이 합쳐진 **아라비아** 민족과 많이 혼합됐다. 이 **지중해** 연안의 인종은, 사실, 주변 사람들과 아주 자유롭게 섞여서, 실제로는 서로 다른 유형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은, 키가 작고 얼굴이_길쭉하고 거무스름한 피부를 지녔다.

북쪽 지역에서는 전쟁과 결혼을 통해서 **안드족속**이 청인종의 흔적을 없앴지만, 남부에서는 그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바스크인**과 **베르베르인**은, 살아남은 이 종족의 두 지류(支流)를 대표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사하라인**과 완전히 섞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원전 3000년경 중앙 **유럽**에서 나타났던 인종 혼합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이 부분적으로 불이행했음에도, 상류 유형들은 혼합됐다.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며, 도래되는 **청동기** 시대와 교차되는 때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어머니 숭배와 관련된다. 남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태양 숭배와 관련된다. 이 시기에는 등글고 지붕이 없는 태양 신전들을 세웠다. **유럽**의 백인종은 정력적인 건축가였고, 태양의 상징으로 거대한 돌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스톤헨지**를 세운 것도 그런 성향 때문이었다. 태양 숭배가 유행한 것은, 이때 남부 **유럽**에서 농업이 크게 번창했음을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인 이 태양 숭배 시기의 미신들이, **브리타니** 반도의 풍속에서 지금도 존속한다. 비록 1,500년 전에 **그리스도교**화 됐지만, 이 **브리타니** 사람들은, 흉안{凶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마법의 장식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번갯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뇌석{雷石}을 여전히 굴뚝 속에 넣어둔다. **브리타니인**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인**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서부 **유럽**에 있었던 본래의 **안돈족속** 주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지중해** 연안 혈통들과 혼합됐다.

however, become permeated by the Andites until the times of the great nomadic invasions of 2500 B.C. Land traffic and trade were nearly suspended during these centuries when the nomads invaded the eastern Mediterranean districts. This interference with land travel brought about the great expansion of sea traffic and trade; Mediterranean sea-borne commerce was in full swing about forty-five hundred years ago. And this development of marine traffic resulted in the sudden expansion of the descendants of the Andites throughout the entire coastal territory of the Mediterranean basin.

80:9.10 (898.5) These racial mixtures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southern European race, the most highly mixed of all. And since these days this race has undergone still further admixture, notably with the blue-yellow-Andite peoples of Arabia. This Mediterranean race is, in fact, so freely admixed with the surrounding peoples as to be virtually indiscernible as a separate type, but in general its members are short, long-headed, and brunet.

80:9.11 (898.61) In the north the Andites, through warfare and marriage, obliterated the blue men, but in the south they survived in greater numbers. The Basques and the Berbers represent the survival of two branches of this race, but even these peoples have been thoroughly admixed with the Saharans.

80:9.12 (898.7) This was the picture of race mixture presented in central Europe about 3000 B.C. In spite of the partial Adamic default, the higher types did blend.

80:9.13 (898.8) These were the times of the New Stone Age overlapping the oncoming Bronze Age. In Scandinavia it was the Bronze Age associated with mother worship. In southern France and Spain it was the New Stone Age associated with sun worship. This was the time of the building of the circular and roofless sun temples. The European white races were energetic builders, delighting to set up great stones as tokens to the sun, much as did their later-day descendants at Stonehenge. The vogue of sun worship indicates that this was a great period of agriculture in southern Europe.

80:9.14 (899.1) The superstitions of this comparatively recent sun-worshipping era even now persist in the folkways of Brittany. Although Christianized for over fifteen hundred years, these Bretons still retain charms of the New Stone Age for warding off the evil eye. They still keep thunderstones in the chimney as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The Bretons never mingled with the Scandinavian Nordics. They are survivors of the original Andonite inhabitants of western Europe, mixed with the Mediterranean stock.

그러나 백색 민족들을, **노르딕, 알파인, 및 지중해** 사람으로 감히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피가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백인종을 그런 계통으로 상당히 잘 분류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광범한 혼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쾌하게 그 차이를 밝히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오늘날 **북 아메리카** 주민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0년에도, 고대의 사회 집단들은 하나의 종족이라고 할 수 없었다.

유럽의 이 문화는 5천 년 동안 계속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섞였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서양 나라들의** 완전한 왕래가 방해를 받았다. 지난 세기 동안에 이 문화는 **북 아메리카**의 국제적 주민 속에서 섞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그 대륙의 미래는, 유지되는 사회 문화 수준뿐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종적 유전인자들의 자질{資質}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80:9.15 (899.2) But it is a fallacy to presume to classify the white peoples as Nordic, Alpine, and Mediterranean. There has been altogether too much blending to permit such a grouping. At one time there was a fairly well-defined division of the white race into such classes, but widespread intermingling has since occurred, an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identify these distinctions with any clarity. Even in 3000 B.C. the ancient social groups were no more of one race than are the present inhabitants of North America.

80:9.16 (899.3) This European culture for five thousand years continued to grow and to some extent intermingle. But the barrier of language prevented the full reciprocation of the various Occidental nations. During the past century this culture has been experiencing its best opportunity for blending in the cosmopolitan population of North America; and the future of that continent will be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the racial factors which are permitted to enter into its present and future populations, as well as by the level of the social culture which is maintained.

80:9.17 (899.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81편. 현대 문명의 발전

⇨ 080

유란시아 책

08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1편
현대 문명의 발전

섹션

소개

1. 문명의 발상지
2. 문명의 도구
3. 도시, 제조업, 및 상업
4. 혼합된 인종
5. 문화가 있는 사회
6. 문명의 유지

소개

캘리개스차와 **아담**의 사명에 입안됐던 세계 개량을 위한 계획이 실패함으로 생긴 불안정과 상관없이, 인간 종족의 기본적인 유기체 진화는, 인간 진보와 인종 발달을 제는 눈금으로 볼 때, 인간 종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진화는, 지연될 수 있지만 중지될 수는 없다.

보라색 인종의 영향은, 비록 숫자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문명의 진보를 이룩했는데, **아담** 시대부터 이 진보는, 인류가 그 이전의 실존 전체를 통해서 거의 100만 년 동안 진보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 문명의 발상지

아담 시대 이후로 거의 3만 5천 년 동안, 문명의 발상지{發祥地}는 **아시아** 남서부에 있었는데, **나일** 강 유역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어 나가서, 약간 북쪽으로 **아라비아** 북부를 지나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투르케스탄**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문명이 정착되는 데에는 **기후**가

PAPER 81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radle of Civilization
2. The Tools of Civilization
3. Cities, Manufacture, and Commerce
4. The Mixed Races
5. Cultural Society
6. The Maintenance of Civilization

INTRODUCTION

81:0.1 (900.1) REGARDLESS of the ups and downs of the miscarriage of the plans for world betterment projected in the missions of Caligastia and Adam, the basic organic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continued to carry the races forward in the scale of human progress and racial development. Evolution can be delayed but it cannot be stopped.

81:0.2 (900.2) The influence of the violet race, though in numbers smaller than had been planned, produced an advance in civilization which, since the days of Adam, has far exceeded the progress of mankind throughout its entire previous existence of almost a million years.

1. THE CRADLE OF CIVILIZATION

81:1.1 (900.3) For about thirty-five thousand years after the days of Adam, the cradle of civilization was in southwestern Asia, extending from the Nile valley eastward and slightly to the north across northern Arabia, through Mesopotamia, and on into Turkestan. And *climate* was the decisive factor in

중대한 요소였다.

아담족속의 초기 이주를 막은 것은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의 기후 및 지형의 심한 변동이었는데, 그들이 **유럽**에 들어가는 것은 확장되는 **지중해**로 인해서 막혔고, 이주하는 인파의 방향을 북쪽과 동쪽으로 바꿔서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런 육지의 융기와 그에 관련된 기후 변화가 끝난, 기원전 15,000년 무렵에는, 문명이 이미 전 세계적 교착상태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아시아**에서 산맥 때문에, 서쪽으로는 **유럽**에서 확장되는 삼림 때문에 여전히 갇혀있는, **안드족속**의 문화 효소와 생물학적 보존물만 예외였다.

다른 모든 수고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기후 변화가 완성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을 포기하고, 더 진보된 가축 기르기와 농사짓기에 매달리도록 강요한다. 진화는 느릴 수 있지만, 몹시 효과적이다.

초기 농사꾼들이 노예를 매우 널리 이용했기 때문에, 전에는 농부가 사냥꾼과 목동으로부터 천대받았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오랫동안 천한 일로 여겨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땅과 씨름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축복 중에서 으뜸이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목축된 생명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농산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존중됐다.

사람은 대개 사냥꾼으로부터 목축업자 시대를 거쳐서 바깥으로써 농부로 진화했으며, 이런 일들이 **안드족속**에서도 똑같이 이뤄졌지만, 더 빈번하게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강압적 필요성 때문에, 모든 부족을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 농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사냥하는 일에서 농업으로 즉각 옮겨가는 현상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라색 혈통과 혼합된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진화 민족들(특히 **중국인**)은, 우연히 수분을 머금은 씨앗에서,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해 무덤에 넣어 뒀던 씨앗에서 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씨 뿌리고 곡식 재배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아시아** 남서부 전역(全域)에서는, 비옥한 강바닥과 인근 평야 지대를 따라서, **안드족속**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선된 농업 기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은, 두 번째 동산 경계 지역에서 주로 농사짓고 채소를 가꾸는 일에 종사했다.

아담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상부 경계 지역의 고원 지대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동산**에서 개량된 그대로, 밀과 보리를 재배했다. **아담**과 **아담선**의 후예는 여기서 만나고 거래했으며 허물없이 어울렸다.

생활 조건에서 이런 강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그토록 많은 비율의 인간 종족들로 하여금 이런

the establishment of civilization in that area.

81:1.2 (900.4) It was the great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in northern Africa and western Asia that terminated the early migrations of the Adamites, barring them from Europe by the expanded Mediterranean and diverting the stream of migration north and east into Turkestan. By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se land elevations and associated climatic changes, about 15,000 B.C., civilization had settled down to a world-wide stalemate except for the cultural ferments and biologic reserves of the Andites still confined by mountains to the east in Asia and by the expanding forests in Europe to the west.

81:1.3 (900.5) Climatic evolution is now about to accomplish what all other efforts had failed to do, that is, to compel Eurasian man to abandon hunting for the more advanced callings of herding and farming. Evolution may be slow, but it is terribly effective.

81:1.4 (900.6) Since slaves were so generally employed by the earlier agriculturists, the farmer was formerly looked down on by both the hunter and the herder. For ages it was considered menial to till the soil; wherefore the idea that soil toil is a curse, whereas it is the greatest of all blessings. Even in the days of Cain and Abel the sacrifices of the pastoral life were held in greater esteem than the offerings of agriculture.

81:1.5 (900.7) Man ordinarily evolved into a farmer from a hunter by transition through the era of the herder, and this was also true among the Andites, but more often the evolutionary coercion of climatic necessity would cause whole tribes to pass directly from hunters to successful farmers. But this phenomenon of passing immediately from hunting to agriculture only occurred in those regions where there was a high degree of race mixture with the violet stock.

81:1.6 (901.1) The evolutionary peoples (notably the Chinese) early learned to plant seeds and to cultivate crops through observation of the sprouting of seeds accidentally moistened or which had been put in graves as food for the departed. But throughout southwest Asia, along the fertile river bottoms and adjacent plains, the Andites were carrying out the improved agricultural techniques inherited from their ancestors, who had made farming and gardening the chief pursui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econd garden.

81:1.7 (901.2) For thousands of years the descendants of Adam had grown wheat and barley, as improved in the Garden, throughout the highlands of the upper border of Mesopotamia. The descendants of Adam and Adamson here met, traded, and socially mingled.

81:1.8 (901.3) It was these enforced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which caused such a large proportion

잡식{雜食} 습관을 갖게 됐다. 그리고 밀, 쌀, 및 채소 위주의 식사와 가축{家畜}의 고기를 섞어 먹음으로써, 고대의 이 사람들은 건강과 활력에서 큰 진보를 이뤘다.

2. 문명의 도구

문화는 문명의 도구가 발달하는 데 입각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사람이 미개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활용했던 도구는, 더 높은 과제를 완수할 때 사람의 힘을 덜 사용하는 정도만큼 효과가 있었다.

문화가 싹트고 사교 모임에서 진보가 시작되는 요즈음 상황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사회와 문명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실제로 약간 갖고 있는데, 초기에 너희의 조상이 사려 깊게 돌아보고 사회에 관한 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간 문명에서 가장 크게 발전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불을 다룰 수 있게 됨.
2. 동물을 길들임.
3. 포로를 노예로 삼음.
4. 사유 재산.

불은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결국 과학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지만, 이 점에서는 원시인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안돈**과 부싯돌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는, 곧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 나라에서 훔쳐왔는지 설명하는 전설로 대체됐다. 고대인은 자신이 직접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모든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으며, 많은 현대인도 계속 이렇게 한다. 소위 자연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객관화 시키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된 원인을 찾기 위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점성술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학으로 바꿨다.

기계가 생기기 전 시대에,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작업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지성인은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살아있는 도구를 손에 쥐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짐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동물 없이는, 원시 상태에서부터 후대의 문명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of the human race to become omnivorous in dietetic practice. And the combination of the wheat, rice, and vegetable diet with the flesh of the herds marked a great forward step in the health and vigor of these ancient peoples.

2. THE TOOLS OF CIVILIZATION

81:2.1 (901.4) The growth of culture is predicated upon the development of the tools of civilization. And the tools which man utilized in his ascent from savagery were effective just to the extent that they released man power for the accomplishment of higher tasks.

81:2.2 (901.5) You who now live amid latter-day scenes of budding culture and beginning progress in social affairs, who actually have some little spare time in which to *think* about society and civilization,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your early ancestors had little or no leisure which could be devoted to thoughtful reflection and social thinking.

81:2.3 (901.6) The first four great advances in human civilization were:

81:2.4 (901.7) 1. The taming of fire.

81:2.5 (901.8) 2.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81:2.6 (901.9) 3. The enslavement of captives.

81:2.7 (901.10) 4. Private property.

81:2.8 (901.11) While fire, the first great discovery, eventually unlocked the doors of the scientific world, it was of little value in this regard to primitive man. He refused to recognize natural causes as explanations for commonplace phenomena.

81:2.9 (901.12) When asked where fire came from, the simple story of Andon and the flint was soon replaced by the legend of how some Prometheus stole it from heaven. The ancients sought a supernatural explanation for all natural phenomena not within the range of their personal comprehension; and many moderns continue to do this. The depersonalization of so-called natural phenomena has required ages, and it is not yet completed. But the frank, honest, and fearless search for true causes gave birth to modern science: It turned astrology into astronomy, alchemy into chemistry, and magic into medicine.

81:2.10 (901.13) In the premachine age the only way in which man could accomplish work without doing it himself was to use an animal. Domestication of animals placed in his hands living tools, the intelligent use of which prepared the way for both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And without these animals man could not have risen from his primitive estate to the levels of subsequent civilization.

길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견됐는데, 특히 중부와 남서부 지역이었다. 이것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방에서 문명이 더 빨리 발전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동물 중에서 다수는 전에 두 번이나 길들여졌었으며, **안드족속** 시대에 재차 길들여졌다. 그러나 개는 아주 오래 전에 청색인이 길들인 후로 계속 사냥꾼 곁에 남아 있었다.

투르케스탄의 안드족속은 광범하게 말을 길들인 첫 민족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주도권을 쥔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기원전 5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부는, 양, 염소, 젓소, 낙타, 말, 닭, 및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했었다. 그들은, 황소, 낙타, 말, 그리고 야크를 운반용 짐승으로 이용했다. 한때는 인간 자신이 운반용 짐승 역할을 했다. 청인종의 어떤 통치자는, 한때 그의 짐꾼 거류지에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노예제도와 땅의 개인 소유 제도는 농업과 함께 발전했다. 노예제도는 주인의 생활수준을 높였고, 사회 문화를 누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했다.

미개인은 자연의 노예였지만, 과학 문명이 인류에게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수여하고 있다. 동물, 불, 바람, 물, 전류,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할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왔고, 계속 해방시킬 것이다. 기계류의 풍성한 발명으로 발생하는 과도기 병폐에 상관없이, 그런 기계 발명에서 얻게 되는 궁극적 유익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다. 일을 처리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문명은 확립되기는 커녕, 결코 변영할 수 없다.

사람은 처음에는 돼있는 것을 단순히 이용해서 주거지를 삼았는데, 암봉(岩棚) 밑에 살거나 동굴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돌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서 가족을 위한 오두막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집 건물을 새롭게 짓는 단계로 발전했는데, 벽돌 또는 다른 건축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의 민족들은, 비교적 현대적인 종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이 집들은 **아메리카**를 개척한 정착민이 만든 초기 통나무집과 흡사했다. 평야 지대에 세워진 모든 사람의 거주지는 벽돌로 지어졌으며, 나중에는 불에 구운 벽돌이 사용됐다.

강가에 살던 이전의 종족들은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긴 막대기들을 땅에 박은 다음에, 꼭대기는 서로 모아져서, 오두막을 위한 뼈대를 이루게 했는데, 가로지르는 갈대이영으로 엮갈리게 짜서, 전체적인 모양은 큰 바구니를 엮어놓은 것과 흡사

81:2.11 (902.1) Most of the animals best suited to domestication were found in Asia, especially in the central to southwest regions. This was one reason why civilization progressed faster in that locality tha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Many of these animals had been twice before domesticated, and in the Andite age they were retamed once again. But the dog had remained with the hunters ever since being adopted by the blue man long, long before.

81:2.12 (902.2) The Andites of Turkestan were the first peoples to extensively domesticate the horse, and this is another reason why their culture was for so long predominant. By 5000 B.C. the Mesopotamian, Turkestan, and Chinese farmers had begun the raising of sheep, goats, cows, camels, horses, fowls, and elephants. They employed as beasts of burden the ox, camel, horse, and yak. Man was himself at one time the beast of burden. One ruler of the blue race once had one hundred thousand men in his colony of burden bearers.

81:2.13 (902.3) The institutions of slavery and private ownership of land came with agriculture. Slavery raised the master's standard of living and provided more leisure for social culture.

81:2.14 (902.4) The savage is a slave to nature, but scientific civilization is slowly conferring increasing liberty on mankind. Through animals, fire, wind, water, electricity, and other undiscovered sources of energy, man has liberated, and will continue to liberate, himself from the necessity for unrelenting toil. Regardless of the transient trouble produced by the prolific invention of machinery, the ultimat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such mechanical inventions are inestimable. Civilization can never flourish, much less be established, until man has *leisure* to think, to plan, to imagine new and better ways of doing things.

81:2.15 (902.5) Man first simply appropriated his shelter, lived under ledges or dwelt in caves. Next he adapted such natural materials as wood and stone to the creation of family huts. Lastly he entered the creative stage of home building, learned to manufacture brick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81:2.16 (902.6) The peoples of the Turkestan highlands were the first of the more modern races to build their homes of wood, houses not at all unlike the early log cabins of the American pioneer settlers. Throughout the plains human dwellings were made of brick; later on, of burned bricks.

81:2.17 (902.7) The older river races made their huts by setting tall poles in the ground in a circle; the tops were then brought together, making the skeleton frame for the hut, which was interlaced with transverse reeds, the whole creation

했다. 이런 구조물은 나중에 진흙으로 칠해졌고, 그것이 햇빛으로 마르게 된 후에는, 비가 새지 않는 매우 유용한 주택이 됐다.

이런 초기 오두막으로부터, 각종 바구니를 엮어 짜는 후대의 방법이 독립적으로 생겨났다. 어떤 집단에서는, 나무로 만든 뼈대에 축축한 진흙이 칠해지는 광경을 관찰함으로써, 도기{陶器}를 만드는 방법이 생겨났다. 진흙으로 뒤덮인 원시 오두막 가운데 하나가 우연히 불에 타게 됐을 때, 도기를 불에 구어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발견됐다. 옛날에 사용되던 기술은, 초기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수반하는 우연한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런 사실은, 적어도 **아담**이 도래하기까지, 진화로 진보하던 인류에게는 거의 전반적으로 정확한 사실이었다.

왕자의 참모진이 도기 만드는 방법을 약 50만 년 전에 처음 소개했지만, 진흙으로 그릇 만들기는 15만 년 넘도록 실제로 사라졌었다. 그 만{灣}의 해안에 있던 **수메르인** 이전{以前} **늑족속**만 계속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도기 만드는 기술은 **아담** 시절에 다시 회복됐다. 이런 기술의 보급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및 중앙 **아시아**의 사막 지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이뤄졌고, 개선된 기법이 연달아 파도를 이루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바깥으로 **동반구**에 퍼졌다.

안드족속 시대의 이 문명을, 그들의 도기류 또는 다른 기술의 단계로 항상 추적할 수는 없다. 인간 진화의 완만한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체제로 인해서 굉장히 뒤엎혔다. 후대의 향아리와 도구들이, 순수한 **안드족속** 사람들이 만든 그 이전의 생산품보다 더 열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도시, 제조업, 및 상업

기원전 12,000년 무렵부터 시작해서, 풍부하고 광활한 목초지로 구성된 **투르케스탄** 사냥터와 방목지가 기후조건 때문에 파괴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미숙한 제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러는 길들여진 짐승 때 사육으로 돌아섰고, 더러는 농사꾼이 되거나 물에서 자라는 먹을거리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더 상류 유형의 **안드족속** 지식인들은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전체 부족이 한 가지 산업의 개발에 매달리는 것이 풍습이 되기도 했다. **나일** 강 유역에서 **힌두쿠시**까지, 그리고 **간지스** 강에서 **황하**{黃河}까지, 우수한 부족의 주요 업무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됐고, 상업은 부업으로 겸했다.

resembling a huge inverted basket. This structure could then be daubed over with clay and, after drying in the sun, would make a very serviceable weatherproof habitation.

81:2.18 (902.8) It was from these early huts that the subsequent idea of all sorts of basket weaving independently originated. Among one group the idea of making pottery arose from observing the effects of smearing these pole frameworks with moist clay. The practice of hardening pottery by baking was discovered when one of these clay-covered primitive huts accidentally burned. The arts of olden days were many times derived from the accidental occurrences attendant upon the daily life of early peoples. At least, this was almost wholly true of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mankind up to the coming of Adam.

81:2.19 (903.1) While pottery had been first introduced by the staff of the Prince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e making of clay vessels had practically ceased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Only the gulf coast pre-Sumerian Nodites continued to make clay vessels. The art of pottery making was revived during Adam's time. The dissemination of this art was simultaneous with the extension of the desert areas of Africa, Arabia, and central Asia, and it spread in successive waves of improving technique from Mesopotamia out over the Eastern Hemisphere.

81:2.20 (903.2) These civilizations of the Andite age cannot always be traced by the stages of their pottery or other arts. The smooth course of human evolution was tremendously complicated by the regimes of both Dalamatia and Eden. It often occurs that the later vases and implements are inferior to the earlier products of the purer Andite peoples.

3. CITIES, MANUFACTURE, AND COMMERCE

81:3.1 (903.3) The climatic destruction of the rich, open grassland hunting and grazing grounds of Turkestan, beginning about 12,000 B.C., compelled the men of those regions to resort to new forms of industry and crude manufacturing. Some turned to the cultivation of domesticated flocks, others became agriculturists or collectors of water-borne food, but the higher type of Andite intellects chose to engage in trade and manufacture. It even became the custom for entire tribes to dedicate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a single industry. From the valley of the Nile to the Hindu Kush and from the Ganges to the Yellow River, the chief business of the superior tribes became the cultivation of the soil, with commerce as a side line.

상업의 증가와, 원료를 가공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의 증가는, 그런 초기의 제법 평화로운 공동체 조성에 직접 도움 줬고, 그 공동체는 문화와 문명의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광대한 세계 무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사회 공동체는 부족단위였다--즉 확장된 가족 집단들이었다. 거래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사귀게 됐고, 그리하여 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섞이도록 기여했다.

약 12,000년 전에, 독립된 도시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원시 무역과 제조업을 하는 이런 도시들은 반드시, 농업과 가축을 기르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활수준이 증진됨으로써 산업이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개량된 초기 도시 생활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초기 인종들은 그렇게 깔끔하고 정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원시 촌락(村落)은 순전히 오물과 쓰레기가 쌓임으로써 25년마다 평균 1내지 2피트씩 높아졌다. 또한 이런 옛 도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주변의 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는데, 불에 굽지 않은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이 오래 지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 것이 허물어진 자리 위에 바로 새 집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금속의 보편적 사용은, 초기 산업 및 상업 도시들이 이뤄지던 이 시대의 특색이었다. 너희는 이미 기원전 900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동(靑銅) 문화를 **투르케스탄**에서 발견했으며, **안드족** 속은 마찬가지로, 석, 금, 및 구리를 잘 다루는 기술을 일찍부터 익혔다. 그러나 비교적 진보된 문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그런 곳에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같은 뚜렷한 시기가 없었으며; 세 시기가 모두 한꺼번에 다른 장소에서 존재했다.

금은 사람이 얻으려고 애쓴 최초의 금속이었는데; 가공하기 쉬웠고, 처음에는 장식품으로만 사용됐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것은 구리였지만, 주석(朱錫)을 섞음으로써 더 강한 청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은, **투르케스탄의 아담선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들이 사는 고지대의 구리 광산이 우연히 주석 퇴적층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숙한 제조업이 출현하고 산업이 시작되면서, 문화를 가진 문명의 보급에 상업이 재빨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여행이 크게 촉진됐고, 문화의 혼합은 물론, 문명의 융합이 크게 촉진됐다. 기원전 5000년까지, 문명화된 지역과 약간 문명화된 지역 전체에서, 말이 광범하게 이용됐다. 이런 후대 인종들은 길들여진 말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차와 전차(戰車)를 갖췄다. 오래 전에도 바퀴가 사용됐지만, 이제는 운송수단들이 그렇게 갖춰져서, 상업과 전쟁 양쪽에 널리 이용됐다.

81:3.2 (903.4) The increase in trade and in the manufacture of raw materials into various articles of commerce was directly instrumental in producing those early and semipeaceful communities which were so influential in spreading the culture and the arts of civilization. Before the era of extensive world trade, social communities were tribal — expanded family groups. Trade brought into fellowship different sorts of human beings, thus contributing to a more speedy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

81:3.3 (903.5) About twelve thousand years ago the era of the independent cities was dawning. And these primitive trading and manufacturing cities were always surrounded by zones of agriculture and cattle raising. While it is true that industry was promoted by the elevation of the standards of living, you should have no misconception regarding the refinements of early urban life. The early races were not overly neat and clean, and the average primitive community rose from one to two feet every twenty-five years as the result of the mere accumulation of dirt and trash. Certain of these olden cities also rose above the surrounding ground very quickly because their unbaked mud huts were short-lived, and it was the custom to build new dwellings directly on top of the ruins of the old.

81:3.4 (903.6) The widespread use of metals was a feature of this era of the early industrial and trading cities. You have already found a bronze culture in Turkestan dating before 9000 B.C., and the Andites early learned to work in iron, gold, and copper, as well. But conditions were very different away from the more advanced centers of civilization. There were no distinct periods, such as the Stone, Bronze, and Iron Ages; all three existed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localities.

81:3.5 (904.1) Gold was the first metal to be sought by man; it was easy to work and, at first, was used only as an ornament. Copper was next employed but not extensively until it was admixed with tin to make the harder bronze. The discovery of mixing copper and tin to make bronze was made by one of the Adamsonites of Turkestan whose highland copper mine happened to be located alongside a tin deposit.

81:3.6 (904.2) With the appearance of crude manufacture and beginning industry, commerce quickly became the most potent influence in the spread of cultural civilization. The opening up of the trade channels by land and by sea greatly facilitated travel and the mixing of cultures as well as the blending of civilizations. By 5000 B.C. the horse was in general use throughout civilized and semicivilized lands. These later races not only had the domesticated horse but also various sorts of wagons and chariots. Ages before, the wheel had been used, but now vehicles so equipped became

여행하는 상인과 방랑하는 탐험가가, 유사{有史} 이래 문명의 진보에, 다른 모든 영향력이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이 기여했다. 군사적 정복, 식민지화, 그리고 후대의 종교들이 조성한 선교사 체계 역시 문화를 보급시키는 요인이 됐지만; 이것은 모두, 무역 관계 다음으로 2차였고, 무역 관계는 산업에서 급속도로 발달하는 기술과 과학으로 인해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

아담 혈통이 인간 종족들에게 주입됨으로써, 문명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끝까지 모험하고 탐험하려는 성향을 크게 자극했으며, 그 결과로 **안드족속**의 급속도로 번식하는 혼혈 후손이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곧 차지하게 됐다.

4. 혼합된 인종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는, **유라시아** 전역, 북부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섬들이 인류의 혼합 인종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인종들은, **유라시아**의 다섯 가지 기본 인간 혈통이 섞이고 다시 섞임으로써 형성됐다.

유라시아 인종들은 각각 어떤 특색 있는 육체적 특징으로 구분된다. **아담족속**과 **노드족속**은 얼굴이 길었으며; **안돈족속**은 얼굴이 넓적했다. **상익** 인종은 얼굴이 중간이었고, 황색인과 청색인은 얼굴이 넓적한 경향이 있다. 청인종들은, **안돈족속** 혈통과 섞이게 됐을 때, 뚜렷하게 얼굴이 넓적했다. 2차 **상익** 종족들은 얼굴이 중간이거나 얼굴이 길었다.

이런 두개골 용적이 종족의 기원을 해독하는데 유용하더라도, 골격 전체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유라시아** 인종들이 발전하던 초기 시절에는, 원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다른 유형의 골격 구조가 있었다:

1. **안돈족속**, 즉 **유라시아** 원주민.
2. 1차 **상익**, 즉 홍색, 황색, 및 청색.
3. 2차 **상익**, 즉 주황색, 녹색, 및 남색.
4. **노드족속**, 즉 **달라마시아인**의 후손.
5. **아담족속**, 즉 보라색 인종.

이런 5대{大} 종족 집단이 광범하게 서로 섞였는데, 혼합이 계속될수록, **상익**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 때문에 **안돈족속** 유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라플란드인**과 **에스키모인**은 **안돈족속**과

universally employed both in commerce and war.

81:3.7 (904.3) The traveling trader and the roving explorer did more to advance historic civilization than all other influences combined. Military conquests, colonization, and missionary enterprises fostered by the later religions were also factors in the spread of culture; but these were all secondary to the trading relations, which were ever accelerated by the rapidly developing arts and sciences of industry.

81:3.8 (904.4) Infusion of the Adamic stock into the human races not only quickened the pace of civilization, but it also greatly stimulated their proclivities toward adventure and exploration to the end that most of Eurasia and northern Africa was presently occupied by the rapidly multiplying mixed descendants of the Andites.

4. THE MIXED RACES

81:4.1 (904.5) As contact is made with the dawn of historic times, all of Eurasia, northern Africa, and the Pacific Islands is overspread with the composite races of mankind. And these races of today have resulted from a blending and reblending of the five basic human stocks of Urantia.

81:4.2 (904.6) Each of the Urantia races was identified by certain distinguishing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Adamites and Nodites were long-headed; the Andonites were broad-headed. The Sangik races were medium-headed, with the yellow and blue men tending to broad-headedness. The blue races, when mixed with the Andonite stock, were decidedly broad-headed. The secondary Sangiks were medium- to long-headed.

81:4.3 (904.7) Although these skull dimensions are serviceable in deciphering racial origins, the skeleton as a whole is far more dependabl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Urantia races there were originally five distinct types of skeletal structure:

- 81:4.4 (904.8) 1. Andonic, Urantia aborigines.
- 81:4.5 (904.9) 2. Primary Sangik, red, yellow, and blue.
- 81:4.6 (904.10) 3. Secondary Sangik, orange, green, and indigo.
- 81:4.7 (904.11) 4. Nodites, descendants of the Dalamatians.
- 81:4.8 (904.12) 5. Adamites, the violet race.

81:4.9 (904.13) As these five great racial groups extensively intermingled, continual mixture tended to obscure the Andonite type by Sangik hereditary dominance. The Lapps and the Eskimos are

상익 청인종의 혼합이다. 그들의 골격 구조는 원래 **안돈** 유형에 거의 근접했었다. 그러나 **아담족속**과 **노트족속**은 다른 인종들과 무척 심하게 섞였으므로, 오직 일반화된 **코카소이드** 종류로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나간 2만 년 동안의 인간 유골이 발굴되더라도, 다섯 가지의 원래 유형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골격 구조의 연구는, 인류가 현재 대략 세 부류로 구분됨을 밝혀줄 것이다:

1. **코카소이드**--**노트족속**과 **아담족속** 혈통들이 **안드족속**과 섞였는데, 1차와 (약간의) 2차 **상익**과 혼합됨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안돈족속**과 이중 교배됨으로 더 변경됐다. **서양의** 백인종은, 약간의 **인도인** 및 **우랄알타이** 어족(語族) 사람들과 함께 이 집단에 포함된다. 이 구분에서 일치하는 요소는, 많든지 적든지 **안드족속** 유전형질이 있다는 것이다.

2. **몽골인**--원래의 홍인종, 황인종, 및 청인종을 포함하는 1차 **상익** 유형. **중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몽골인** 유형이 2차 **상익**과 **안돈족속**의 혼합으로 변경됐으며;**안드족속**이 주입됨으로써 더 변경됐다. **말레이인**과, 기타 **인도네시아** 민족들은, 높은 비율의 2차 **상익** 핏줄을 가졌음에도, 이 부류에 속한다.

3. **흑색 인종**--원래의 주황인종, 녹색인종, 및 남색인종을 포함하는 2차 **상익** 유형. 이것은 **흑인**이 가장 잘 예증(例證)하는 유형이며, **아프리카**,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차 **상익** 종족들이 자리잡은 곳은 어디서든지 발견될 것이다.

중국 북부에는 **코카소이드**와 **몽골인** 유형이 섞인 어떤 인종이 있으며;**레반트**에서는 **코카소이드**와 **흑색 인종**이 서로 섞였으며;**인도**에서는 **남아메리카**처럼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세 가지 유형의 골격 특질이 여전히 존속하며, 현재 인간 종족들의 후기 선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문화가 있는 사회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가 있는 문명이, 반드시 상호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시대든지, 유기체의 진화는 문화적 쇠퇴 한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인간 역사를 조사해 보면, 결국 진화와 문화가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됨을 발견할 것이다. 진화는 문화가 없는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문화가 있는 문명은 인종 발달이 진행되는 충분한 바탕 없이는 번성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인간 사회의 진보와 상관없는 문명의 기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피는 인종들의 선천적 역량을 증대시켰고,

blends of Andonite and Sangik-blue races. Their skeletal structures come the nearest to preserving the aboriginal Andonic type. But the Adamites and the Nodites have become so admixed with the other races that they can be detected only as a generalized Caucasoid order.

81:4.10 (905.1) In general, therefore, as the human remains of the last twenty thousand years are unearthed, it will be impossible clearly to distinguish the five original types. Study of such skeletal structures will disclose that mankind is now divided into approximately three classes:

81:4.11 (905.2) 1. *The Caucasoid* — the Andite blend of the Nodite and Adamic stocks, further modified by primary and (some) secondary Sangik admixture and by considerable Andonic crossing. The Occidental white races, together with some Indian and Turanian peoples, are included in this group. The unifying factor in this division is the greater or lesser proportion of Andite inheritance.

81:4.12 (905.3) 2. *The Mongoloid* — the primary Sangik type, including the original red, yellow, and blue races. The Chinese and Amerinds belong to this group. In Europe the Mongoloid type has been modified by secondary Sangik and Andonic mixture; still more by Andite infusion. The Malayan and other Indonesian peoples are included in this classification, though they contain a high percentage of secondary Sangik blood.

81:4.13 (905.4) 3. *The Negroid* — the secondary Sangik type, which originally included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This is the type best illustrated by the Negro, and it will be found through Africa, India, and Indonesia wherever the secondary Sangik races located.

81:4.14 (905.5) In North China there is a certain blending of Caucasoid and Mongoloid types; in the Levant the Caucasoid and Negroid have intermingled; in India, as in South America, all three types are represented. And the skelet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surviving types still persist and help to identify the later ancestry of present-day human races.

5. CULTURAL SOCIETY

81:5.1 (905.6) Biologic evolution and cultural civilization are not necessarily correlated; organic evolution in any age may proceed unhindered in the very midst of cultural decadence. But when lengthy periods of human history are surveyed, it will be observed that eventually evolution and culture become related as cause and effect. Evolution may advance in the absence of culture, but cultural civilization does not flourish without an adequate background of antecedent racial progression. Adam and Eve introduced no art of

경제 발전과 산업 진보 속도를 가속시켰다. **아담**이 증여됨으로써 인종들의 두뇌 능력이 향상됐고, 그리하여 자연스런 진화의 진행이 크게 촉진됐다.

농업, 동물 길들이기, 및 개선된 건축술을 통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최악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됐고, 무엇으로 삶의 과정을 상쾌하게 만들 것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궁리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계속 높아지는, 물질적으로 안락함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시발점이 됐다. 인간은 제조업과 산업을 통해서 필사자인생의 유쾌한 만족감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화 사회는, 무료 회원권과 완전한 동등함을 갖고 그 속에 태어나도록 상속된 특권을 모든 사람이 가질 만큼, 훌륭하고 인정 많은 동호회{同好會}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회는, 세상 노동자들의 늘_진보하는 상류 조합{組合} 같은데, 그 속에서 자기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가 후세에 생활하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숭고하게 고생하는 사람만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명 조합은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데, 엄하고 혹독한 훈련을 강요하고, 모든 반대자 및 거부자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회의 공동된 위험과 인종적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증강된 안전 보장 외에는, 개인의 자유나 특권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의 연합은, 인간이 그동안 배워온 것이 유용하다는, 생존 대비책의 한 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은 자기를_희생하고 개인의_자유를 삭감하는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며, 사회는 이런 증대된 집단적 보호에 대한 값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낸다. 한 마디로, 오늘날 사회 체제는 시행착오로 생긴 보험 계획인데, 이것은 인간 종족의 초기 체험의 특징을 나타내는, 혹독하고도 반{反}사회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돼 있다.

이처럼 사회는, 제도를 통한 시민의 자유, 자본과 발명을 통한 경제적 자유, 문화를 통한 사회적 해방, 그리고 치안{治安} 규칙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짜임새가 돼간다.

힘이 정의를 이루지는 않지만, 뒤를 잇는 각 세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강력하게 시행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층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각 인간의 권리는 사회적 의무와 관련돼 있으며; 집단의 혜택은 보호장치인데, 이것은 집단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요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어김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집단의 권리는, 개인

civilization foreign to the progress of human society, but the Adamic blood did augment the inherent ability of the races and did accelerate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progression. Adam's bestowal improved the brain power of the races, thereby greatly hastening the processes of natural evolution.

81:5.2 (905.7) Through agriculture, animal domestication, and improved architecture, mankind gradually escaped the worst of the incessant struggle to live and began to cast about to find wherewith to sweeten the process of living;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triving for higher and ever higher standards of material comfort. Through manufacture and industry man is gradually augmenting the pleasure content of mortal life.

81:5.3 (906.1) But cultural society is no great and beneficent club of inherited privilege into which all men are born with free membership and entire equality. Rather is it an exalted and ever-advancing guild of earth workers, admitting to its ranks only the nobility of those toilers who striv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may live and advance in subsequent ages. And this guild of civilization exacts costly admission fees, imposes strict and rigorous disciplines, visits heavy penalties on all dissenters and nonconformists, while it confers few personal licenses or privileges except those of enhanced security against common dangers and racial perils.

81:5.4 (906.2) Social association is a form of survival insurance which human beings have learned is profitable; therefore are most individuals willing to pay those premiums of self-sacrifice and personal-liberty curtailment which society exacts from its members in return for this enhanced group protection. In short, the present-day social mechanism is a trial-and-error insurance plan designed to afford some degree of assurance and protection against a return to the terrible and antisocial conditions which characterized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human race.

81:5.5 (906.3) Society thus becomes a co-operative scheme for securing civil freedom through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through capital and invention, social liberty through cultur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rough police regulation.

81:5.6 (906.4) *Might does not make right, but it does enforce the commonly recognized rights of each succeeding generation.* The prime mission of government is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he just and fair regulation of class differences, and the enforcement of equality of opportunity under the rules of law. Every human right is associated with a social duty; group privilege is an insurance mechanism which unfailingly demands the full payment of the exacting premiums of group

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성적{性的} 성향에 대한 규칙을 포함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자유가, 사회 진화에서 정당한 목표다. 제한 없는 자유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인간 정신이 지어낸, 헛되고 공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6. 문명의 유지

생물학적 진화는 계속 상승되는 방향으로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문화적 진화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파도를 이루면서 밖으로 퍼져 나갔고, 그 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수한 핏줄의 **아담** 자손 전체가 마침내 흩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풍성하게 만들 때까지, 연속해서 약화됐다. 종족들이 충분히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정도까지 섞였다. 문화는 서서히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리고 이 문명은 반드시 유지되고 촉진돼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화 자원, 즉 느리게 발전하는 문명 진화에 활력을 주고 이를 자극할 **안드족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문명은, 다음 요인에서 자라났고 현재도 그 요인에 입각하고 있다:

1. **자연 환경**. 물질 문명의 본질과 범위는, 대체로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후, 날씨, 및 수많은 물리적 조건이, 문화의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안드족속의 시대가 시작될 때, 광대하고 비옥한, 흔히 트인 사냥터가 온 세계에서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북 아메리카**에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퍼져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투르케스탄** 북부에 있었고, **안돈족속** 황인종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남서부 **아시아**에서 우수한 문화가 진화한 결정적 요인은 인종과 기후였다. **안드족속**은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들 문명의 진로 결정에 중대한 요인은, **이란**, **투르케스탄**, 및 **신장** 지역이 점점 건조한 지대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자꾸 메말라가는 그들의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새롭고 발전된 방법을 발명하고 채택하도록, 이것이 강요됐다.

대륙의 지형{地形}, 그리고 땅이 분포된 기타 상황들이, 평화나 전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 아메리카** 민족들이 누렸던 것만큼, 곤란을 받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진 **유란시아인**은 거의 없었다--그들은 광대한 대양 때문에 온 사방이 실제로 보호를 받았다.

2. **자본재{資本財}**. 빈곤한 상황에서는 결코 문화가 발전할 수 없으며; 여가 시간은 문명의 진

service. And group rights, as well as those of the individual, must be protected, including the regulation of the sex propensity.

81:5.7 (906.5) Liberty subject to group regulation is the legitimate goal of social evolution. Liberty without restrictions is the vain and fanciful dream of unstable and flighty human minds.

6. THE MAINTENANCE OF CIVILIZATION

81:6.1 (906.6) While biologic evolution has proceeded ever upward, much of cultural evolution went out from the Euphrates valley in waves, which successively weakened as time passed until finally the whole of the pure-line Adamic posterity had gone forth to enrich the civilizations of Asia and Europe. The races did not fully blend, but their civilizations did to a considerable extent mix. Culture did slowl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this civilization must be maintained and fostered, for there exist today no new sources of culture, no Andites to invigorate and stimulate the slow progress of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81:6.2 (906.7) The civilization which is now evolving on Urantia grew out of, and is predicated on, the following factors:

81:6.3 (906.8) 1. *Natural circumstances*. The nature and extent of a material civilization is in large measure determined by the natural resources available. Climate, weather, and numerous physical conditions ar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culture.

81:6.4 (907.1) At the opening of the Andite era there were only two extensive and fertile open hunting areas in all the world. One was in North America and was overspread by the Amerinds; the other was to the north of Turkestan and was partly occupied by an Andonic-yellow race. The decisiv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a superior culture in southwestern Asia were race and climate. The Andites were a great people, but the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course of their civilization was the increasing aridity of Iran, Turkestan, and Sinkiang, which forced them to invent and adopt new and advanced methods of wresting a livelihood from their decreasingly fertile lands.

81:6.5 (907.2) The configuration of continents and other land-arrangement situations are very influential in determining peace or war. Very few Urantians have ever had such a favorable opportunity for continuous and unmolested development as has been enjoyed by the peoples of North America — protected on practically all sides by vast oceans.

81:6.6 (907.3) 2. *Capital goods*. Culture is never developed under conditions of poverty; leisure is

보에 필수다.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갖는 개인의 성품은 물질적 풍요함 없이도 획득될 수 있지만, 문화가 있는 문명은 오로지, 열망과 더불어 여가 시간을 조장하는 물질적 번영이 이뤄진 조건에서만 조성될 수 있다.

원시 시대에, **유란시아**의 생활은 심각하고 냉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열대지방의 쾌적한 기후 쪽으로 이동하려는 계속적인 경향은, 끊임없는 투쟁과 끝없는 고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실존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지만, 그런 편안함을 추구한 종족과 부족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여가 시간을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힘써서 머리를 쏘므로써, 힘을 덜 들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 획득하고 유익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종족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변함없이 사회 진보가 발생했다.

3. **과학 지식.** 문명의 물질적 국면은 반드시 과학적 자료가 누적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활과 화살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동력을 얻은 목적으로 동물을 활용한 뒤에, 사람이 바람과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증기와 전기의 이용이 뒤따랐다. 그러나 문명의 수단은 서서히 개선됐다. 옷감 짜기, 도기, 동물 길들이기, 및 금속 가공이 발명된 후에는, 글을 쓰고 인쇄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지식이 능력이다. 발명이 이뤄진 후에야 문화 발전이 세계적인 규모로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과학과 발명은, 특히 인쇄기의 등장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이런 모든 문화 활동과 발명 활동의 상호 작용은 문화가 발달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시켰다.

과학은 수학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사용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정확성을 요구하도록 인간의 사고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한 과학은, 실책을 제거함으로써 철학을 안정시키며, 한편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종교를 정화(淨化)시킨다.

4. **인적(人的) 자원.** 인력(人力)은 문명의 보급에 필수 요소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수가 많은 민족이 수가 적은 인종의 문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막히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자멸(自滅)한다. 정상적인 인구 밀도의 적정 수준을 넘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생활수준이 저하됐음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평화적 침투나 군사적 정복, 즉 강제 점령으로 영토의 경계선을 즉각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essential to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ndividual character of moral and spiritual value may be acquired in the absence of material wealth, but a cultural civilization is only derived from those conditions of material prosperity which foster leisure combined with ambition.

81:6.7 (907.4) During primitive times life on Urantia was a serious and sober business. And it was to escape this incessant struggle and interminable toil that mankind constantly tended to drift toward the salubrious climate of the tropics. While these warmer zones of habitation afforded some remission from the intense struggle for existence, the races and tribes who thus sought ease seldom utilized their unearned leisure for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Social progress has invariably come from the thoughts and plans of those races that have, by their intelligent toil, learned how to wrest a living from the land with lessened effort and shortened days of labor and thus have been able to enjoy a well-earned and profitable margin of leisure.

81:6.8 (907.5) 3. *Scientific knowledge.* The material aspects of civilization must always await the accumulation of scientific data. It was a long time after the discovery of the bow and arrow and the utilization of animals for power purposes before man learned how to harness wind and water, to be followed by the employment of steam and electricity. But slowly the tools of civilization improved. Weaving, potter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and metalworking were followed by an age of writing and printing.

81:6.9 (907.6) Knowledge is power. Invention always precedes the acceler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on a world-wide scale. Science and invention benefited most of all from the printing press, and the interaction of all these cultural and inventive activities has enormously accelerated the rate of cultural advancement.

81:6.10 (907.7) Science teaches man to speak the new language of mathematics and trains his thoughts along lines of exacting precision. And science also stabilizes philosophy through the elimination of error, while it purifies religion by the destruction of superstition.

81:6.11 (907.8) 4. *Human resources.* Man power is indispensable to the spread of civilization. All things equal, a numerous people will dominate the civilization of a smaller race. Hence failure to increase in numbers up to a certain point prevents the full realization of national destiny, but there comes a point in population increase where further growth is suicidal. Multiplication of numbers beyond the optimum of the normal man-land ratio means either a lowering of the standards of living or an immediate expansion of territorial boundaries by peaceful penetration or by military conquest, forcible occupation.

너희는 때로 전쟁의 참혹한 피해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및 도덕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필사자가 태어나야만함도 깨달아야 하며; 행성에서 그런 번식과 더불어 곧 인구 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는 크기가 작다. **유란시아**는 평균인데, 아마 약간 작을 것이다. 나라의 인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면, 문화가 증진되고 전쟁이 방지된다. 그리고 언제 성장을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나라가 현명한 나라다.

그러나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발전된 기계 장비를 갖춘 대륙{大陸}이라도, 그 민족의 지성이 쇠퇴한다면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교육으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문화에 필수 요소인 지혜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선천적으로 지성적인 남녀만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민족은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은 정말로 현명하게 될 수도 있다.

5. **물질 자원의 유효성.** 많은 것이, 천연자원, 과학적 지식, 자본재, 및 인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초기 문명에서 주요 요소는, 현명한 사회 지배자가 행사하는 **세력**이었으며; 원시인은, 자기보다 우수한 동시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엄밀하게 강요하는 문명을 가졌다. 잘 조직되고 우수한 소수가 대체로 이 세상을 지배해 왔다.

힘이 무엇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힘은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결정한다. **유란시아**는 겨우 최근에 이르러서야, 힘과 정의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토론할 수 있는 경지에 사회가 도달했다.

6. **언어의 유효성.** 문명은 언어가 형성될 때까지 확산되지 못한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언어가, 문명화된 사고{思考}와 계획의 확산을 보장해 준다. 초기 시절에 중요한 진전이 언어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진화하는 사고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앞선 언어의 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언어는 집단의 교제로부터 진화했는데, 각 지역 집단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자체 체계를 개발했다. 언어는, 몸짓, 손짓, 외침, 흉내 내는 음성, 억양, 그리고 나중에는 알파벳을 소리 내는 데 붙는 강약을 통해서 성장했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용한, 생각에 이용되는 도구이지만, 사회 집단들이 어느 정도 여가 시간을 획득하기 전에는 번성하지 않는다. 언어를 구사하려는 성향이, 새로운 단어를--곧 속어를--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관습이 그것을 언어화한다. 사투리의 기원은, 가족 집단에서 “어린애 같은 말투”를 허용하는 것에서 예증된다.

언어가 다른 것은, 평화의 확장에 항상 큰 장

81:6.12 (908.1) You are sometimes shocked at the ravages of war, but you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for producing large numbers of mortals so as to afford ample opportunity for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with such planetary fertility there soon occurs the serious problem of overpopulati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are small. Urantia is average, perhaps a trifle undersized. The optimum stabilization of national population enhances culture and prevents war. And it is a wise nation which knows when to cease growing.

81:6.13 (908.2) But the continent richest in natural deposits and the most advanced mechanical equipment will make little progress if the intelligence of its people is on the decline. Knowledge can be had by education, but wisdom, which is indispensable to true culture, can be secured only through experience and by men and women who are innately intelligent. Such a people are able to learn from experience; they may become truly wise.

81:6.14 (908.3) 5. *Effectiveness of material resources.* Much depends on the wisdom displayed in th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scientific knowledge, capital goods, and human potentials. The chief factor in early civilization was the *force* exerted by wise social masters; primitive man had civilization literally thrust upon him by his superior contemporaries. Well-organized and superior minorities have largely ruled this world.

81:6.15 (908.4) Might does not make right, but might does make what is and what has been in history. Only recently has Urantia reached that point where society is willing to debate the ethics of might and right.

81:6.16 (908.5) 6. *Effectiveness of language.* The spread of civilization must wait upon language. Live and growing languages insure the expansion of civilized thinking and planning. During the early ages important advances were made in language. Today, there is great need for further linguistic development to facilitate the expression of evolving thought.

81:6.17 (908.6) Language evolved out of group associations, each local group developing its own system of word exchange. Language grew up through gestures, signs, cries, imitative sounds, intonation, and accent to the vocalization of subsequent alphabets. Language is man's greatest and most serviceable thinking tool, but it never flourished until social groups acquired some leisure. The tendency to play with language develops new words — slang. If the majority adopt the slang, then usage constitutes it language. The origin of dialects is illustrated by the indulgence in “baby talk” in a family group.

81:6.18 (908.7) Language differences have ever been

에가 되었다. 어떤 문화가, 인종 전반에, 대륙 전체에, 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언어 정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편적 언어는, 평화를 증진시키고, 문화를 지켜주며, 행복을 증대시킨다. 심지어 세계의 언어들이 몇 개로 줄어들 때에도, 뛰어난 문화 민족들이 이것들을 숙달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어(國際語)가 개발되는 면에서는 **유란시아**에서 거의 진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상업 교류의 확립이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언어, 상업, 예술, 과학, 경쟁적 시험, 또는 종교와 관련되는가에 상관없이, 이런 모든 국제 관계는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7. 기계 장치의 유효성. 문명의 진보는, 도구, 기계, 그리고 보급 경로의 개발과 보유에 직접 관련된다. 개선된 도구, 즉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기계들이, 진보하는 문명의 무대에서 경쟁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지를 결정한다.

초기 시대에는, 땅 경작에 이용되는 유일한 에너지는 인력{人力}이었다. 사람 대신 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므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최근에는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기 시작했고, 그런 발전은 모두 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했는데, 더 가치 있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인력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사용하면, 과학은 인간을 사회적으로 크게 해방시키는 방편이 된다. 노동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기계류가 너무 빨리 발명되는 결과로서, 대량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나라의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과도기의 난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만큼 현명한 방법과 확실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계 시대가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8. 계몽가(啓蒙家)의 성품. 사회 유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앞선 모든 사람, 그리고 전체 문화와 지식에 무엇이든지 기여한 모든 사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해준다. 문화의 횡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런 작업에서, 가정은 언제나 기초 기관이 될 것이다. 오락과 사회생활이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 순서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똑같이 필수 요소다.

곤충은, 삶을--곤 정말로 매우 한정적이고 순전히 본능적인 실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교육받고 준비를 갖춘 상태로 태어난다. 갓난아기는 교육 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린 세대를 교육 훈련을 통제함으로써, 문명의 진화 행로를 크게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the great barrier to the extension of peace. The conquest of dialects must precede the spread of a culture throughout a race, over a continent, or to a whole world. A universal language promotes peace, insures culture, and augments happiness. Even when the tongues of a world are reduced to a few, the mastery of these by the leading cultural peoples mightily influences the achievement of world-wide peace and prosperity.

81:6.19 (908.8) While very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on Urantia toward developing an international language, mu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 And all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fostered, whether they involve language, trade, art, science, competitive play, or religion.

81:6.20 (909.1) 7. *Effectiveness of mechanical devices.*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tools, machines, and channels of distribution. Improved tools, ingenious and efficient machines, determine the survival of contending groups in the arena of advancing civilization.

81:6.21 (909.2) In the early days the only energy applied to land cultivation was man power. It was a long struggle to substitute oxen for men since this threw men out of employment. Latterly, machines have begun to displace men, and every such advance is directly contributory to the progress of society because it liberates man power for the accomplishment of more valuable tasks.

81:6.22 (909.3) Science, guided by wisdom, may become man's great social liberator. A mechanical age can prove disastrous only to a nation whose intellectual level is too low to discover those wise methods and sound techniques for successfully adjusting to the transition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sudden loss of employment by large numbers consequent upon the too rapid invention of new types of laborsaving machinery.

81:6.23 (909.4) 8. *Character of torchbearers.* Social inheritance enables man to stand on the shoulders of all who have preceded him, and who have contributed aught to the sum of culture and knowledge. In this work of passing on the cultural torch to the next generation, the home will ever be the basic institution. The play and social life comes next, with the school last but equally indispensable in a complex and highly organized society.

81:6.24 (909.5) Insects are born fully educated and equipped for life — indeed, a very narrow and purely instinctive existence. The human baby is born without an education; therefore man possesses the power, by controlling the educational training of the younger generation, greatly to modify the evolutionary course of

문명 촉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은, 세계 여행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통신 방법 향상이다. 그러나 교육의 향상은, 사회 구조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한 현대의 평가 역시, 훨씬 더 순수한 지적 및 과학적 계통이 성장하는 정도에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영적(靈的) 개발과 가정 제도의 보호 면에서 정지 상태에 있다.

9. 종족의 이상(理想). 한 세대의 이상(理想)이, 직계 후손을 위해서 운명의 경로를 개척한다. 문명이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를, 사회 계몽가의 자질이 결정할 것이다. 어느 한 세대의 가정, 교회, 및 학교가,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의 성품 경향을 미리 결정한다. 어느 종족 또는 민족의 도덕 및 영적 추진력이, 그 문명에서 문화의 속도를 대체로 결정한다.

이상(理想)이, 사회 흐름의 원천을 항상시킨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든지, 압력이나 방향을 통제하는 무슨 기법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근원보다 조금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문화가 있는 문명의 가장 물질적인 면을 추진하는 힘조차, 사회의 업적들 중에서 물질 성향이 가장 적은 곳에 들어 있다. 지성은 문명의 체제를 통제할 수 있고, 지혜는 이를 지휘할지 모르지만, 영적 이상주의는, 한 달성 수준에서 다른 달성 수준으로, 인간의 문화를 정말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다.

처음에, 인생은 실존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이제는,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며; 다음에는 사고(思考)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인간 실존의 다가오는 이 세상 목표다.

10. 전문가의 협조. 초기에는 분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화되는 결과로 인해서 문명이 엄청나게 진보했다. 문명은 이제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달려있다.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를 한데 모으는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사회, 예술, 기술, 및 산업의 전문가는 계속 늘어나고, 기술과 솜씨 면에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하고 협동하는 효과적 수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런 다양화된 역량과 다변화된 고용은 결국 인간 사회를 약화시키고 붕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발명과 그런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지성은, 빠른 속도의 발명과 가속화된 속도의 문화 팽창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civilization.

81:6.25 (909.6) The greatest twentieth-century influences contributing to the furtherance of civi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culture are the marked increase in world travel and the unparalleled improvements in methods of communication. But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has not kept pace with the expanding social structure; neither has the modern appreciation of ethics developed in correspondence with growth along more purely intellectual and scientific lines. And modern civilization is at a standstill in spiritual development and the safeguarding of the home institution.

81:6.26 (909.7) 9. *The racial ideals.* The ideals of one generation carve out the channels of destiny for immediate posterity. The *quality* of the social torchbearers will determine whether civilization goes forward or backward. The homes, churches, and schools of one generation predetermine the character trend of the succeeding generation. The moral and spiritual momentum of a race or a nation largely determines the cultural velocity of that civilization.

81:6.27 (909.8) Ideals elevate the source of the social stream. And no stream will rise any higher than its source no matter what technique of pressure or directional control may be employed. The driving power of even the most material aspects of a cultural civilization is resident in the least material of society's achievements. Intelligence may control the mechanism of civilization, wisdom may direct it, but spiritual idealism is the energy which really uplifts and advances human culture from one level of attainment to another.

81:6.28 (910.1) At first life was a struggle for existence; now, for a standard of living; next it will be for quality of thinking, the coming earthly goal of human existence.

81:6.29 (910.2) 10. *Co-ordination of specialists.* Civilization has been enormously advanced by the early division of labor and by its later corollary of specialization. Civilization is now dependent on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specialists. As society expands, some method of drawing together the various specialists must be found.

81:6.30 (910.3) Social, artistic, technical, and industrial specialists will continue to multiply and increase in skill and dexterity. And this diversification of ability and dissimilarity of employment will eventually weaken and disintegrate human society if effective means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not developed. But the intelligence which is capable of such inventiveness and such specialization should be wholly competent to devise adequate methods of control and adjustment for al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rapid growth of invention and the

11. 일자리를_찾아주는 장치. 다음 세대의 사회 발전은,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는 전문화에 대한,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인 협동과 조정에서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분업이 점점 심화될수록,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개인을 안내하는 어떤 기법이 고안돼야 한다.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기계류만이 실업의 원인은 아니다. 경제적 복잡성, 그리고 산업 및 직업의 전문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자를 배치하는 문제는 더 어렵게 된다.

사람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복잡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효율적인 방법 역시 제공돼야 한다. 시민에게 고도의 전문화된 기법을 생활 방법으로 훈련시켜주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일반 노동이나 장사 또는 직업을 훈련시킴으로써, 전문화된 일에서 일시적으로 실직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직된 많은 부류의 사람을 오랫동안 보호한다면, 어떤 문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최고 수준의 시민이라도 공공 기금에서 후원받게 되면, 조만간 비뚤어지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 사적{私的} 자선금의 경우라도, 신체 건강한 시민에게 오래 제공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사회는, 옛 민족들의 오래된 공동사회 풍습 및 봉건적 풍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평범한 고용살이는 수긍할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회화될 수 있지만, 총명하게 협동하는 어떤 기법으로, 잘 훈련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인간들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대화된 조정과 우호적인 규제는, 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또는 독재적인 규범적 제도 같은, 구식이고 더 원시적인 방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협동을 가져올 것이다.

12. 기꺼이 협동하려는 마음. 인간 사회의 진보를 크게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크고 더 사회화된 인간 집단들과, 반{反}사회적인 정신을 소유한 개인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작고 서로 융합하지 않는 정신을 소유한 반사회적인 사람들의 연합체, 이 둘의 이권{利權}과 복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다.

교육 방법과 종교적 이상{理想}이, 높은 유형의 총명한 애국심과 나라에 대한 헌신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의 문명도 오래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총명한 애국심과 문화적 단결이 없다면, 편협한 질투심과 지역 이기주의의 결과로서, 모든 나라가 붕괴되기 쉽다.

세계적 문명을 유지하는 것은, 평화롭고 우에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효과적인 조정이 없다면, 산업 문명은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성, 즉:단조로움, 협소함, 그리고 의심과 질투를 일으키려는 성향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accelerated pace of cultural expansion.

81:6.31 (910.4) 11. *Place-finding devices.* The next age of social development will be embodied in a better and more effec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ever-increasing and expanding specialization. And as labor more and more diversifies, some technique for directing individuals to suitable employment must be devised. Machinery is not the only cause for unemployment among the civilized peoples of Urantia. Economic complexity and the steady increase of industrial and professional specialism add to the problems of labor placement.

81:6.32 (910.5) It is not enough to train men for work; in a complex society there must also be provided efficient methods of place finding. Before training citizens in the highly specialized techniques of earning a living, they should be trained in one or more methods of commonplace labor, trades or callings which could be utilized when they were transiently unemployed in their specialized work. No civilization can survive the long-time harboring of large classes of unemployed. In time, even the best of citizens will become distorted and demoralized by accepting support from the public treasury. Even private charity becomes pernicious when long extended to able-bodied citizens.

81:6.33 (910.6) Such a highly specialized society will not take kindly to the ancient communal and feudal practices of olden peoples. True, many common services can be acceptably and profitably socialized, but highly trained and ultraspecialized human beings can best be managed by some technique of intelligent co-operation. Modernized co-ordination and fraternal regulation will be productive of longer-lived co-operation than will the older and more primitive methods of communism or dictatorial regulative institutions based on force.

81:6.34 (910.7) 12.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One of the great hindrances to the progress of human society is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larger, more socialized human groups and of the smaller, contrary-minded asocial associations of mankind, not to mention antisocially-minded single individuals.

81:6.35 (910.8) No national civilization long endures unless its educational methods and religious ideals inspire a high type of intelligent patriotism and national devotion. Without this sort of intelligent patriotism and cultural solidarity, all nations tend to disintegrate as a result of provincial jealousies and local self-interests.

81:6.36 (911.1) The maintenance of world-wide civilization is dependent on human beings learning how to live together in peace and fraternity. Without effective co-ordination, industrial civilization is jeopardized by the dangers of ultraspecialization: monotony, narrowness, and the

13. **유능하고 현명한 지도자.** 문명사회에서는 많은, 아주 많은 것이, 분담량을_끌어당기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심령의 소유자에게 의존한다. 무거운 짐을 열 사람이 함께--곧 모두 동시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협동 작업은--곧 사회적 협동은-- 지도력에 좌우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있는 문명들은, 시민이 현명하고 진취적인 지도자들과 영리하게 협동한 것에 기초해 왔으며; 인간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까지, 문명사회는 현명하고 활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계속 의존할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물질적 부{富}, 지적 탁월성, 도덕적 가치, 사회적 슬기, 및 시공우주 통찰력 등을 현명하게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탄생된다.

14. **사회의 변화.** 사회는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한 현상이며;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과학 발전과 속도를 맞추는 데 필수인 사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 할 때, 전진하는 문명은 반드시 지연된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또한 어떤 관념이 색다르고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사람은 사회라는 장치를 실험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모험은, 사회 진화의 역사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며; 이런 혁신자들은, 심사숙고된 사회 실험 또는 경제 실험 분야에서 실제 체험을 가진 자들의 지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어떤 큰 사회 변화나 경제 변화든지, 갑작스럽게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물리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모든 유형의 인간적 조정 에 시간이 필수 요소다.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정만이, 순간적인 자극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도, 그 물질적 및 사회적 반응이 충분히 완성되기에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문명이 어느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옮겨가는 위험한 기간에, 그 종족의 이상{理想}이 최고 버팀목이고 보험이다.

15. **과도기 붕괴의 예방.** 사회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시행착오로 얻은 산물이며; 행성의 신분상 동물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 에 걸쳐서 상승한 연속 단계에서, 선택하여 조정하고, 재조정함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해당되는 큰 위험은, 이미 확립된 과거의 방법으로부터 새롭고 더 나은, 그러나 시도된 적이 없는 미래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붕괴되는 조짐이다.

tendency to breed distrust and jealousy.

81:6.37 (911.2) 13. *Effective and wise leadership.* In civilization much, very much, depends on an enthusiastic and effective load-pulling spirit. Ten men are of little more value than one in lifting a great load unless they lift together — all at the same moment. And such teamwork — social co-operation — is dependent on leadership. The cultural civilization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have been based upon the intelligent co-operation of the citizenry with wise and progressive leaders; and until man evolves to higher levels, civilization will continue to be dependent on wise and vigorous leadership.

81:6.38 (911.3) High civilizations are born of the sagacious correlation of material wealth, intellectual greatness, moral worth, social cleverness, and cosmic insight.

81:6.39 (911.4) 14. *Social changes.* Society is not a divine institution; it is a phenomenon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advancing civilization is always delayed when its leaders are slow in making those changes in the social organization which are essential to keeping pace with the scientific developments of the age. For all that, things must not be despised just because they are old, neither should an idea be unconditionally embraced just because it is novel and new.

81:6.40 (911.5) Man should be unafraid to experiment with the mechanisms of society. But always should these adventures in cultural adjustment be controlled by those who are fully conversant with the history of social evolution; and always should these innovators be counseled by the wisdom of those who have had practical experience in the domains of contemplated social or economic experiment. *No great social or economic change should be attempted suddenly.* Time is essential to all types of human adjustment — physical, social, or economic. Only moral and spiritual adjustments can be made on the spur of the moment, and even these require the passing of time for the full outworking of their material and social repercussions. The ideals of the race are the chief support and assurance during the critical times when civilization is in transit from one level to another.

81:6.41 (911.6) 15. *The prevention of transitional breakdown.* Society is the offspring of age upon age of trial and error; it is what survived the selective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in the successive stages of mankind's age-long rise from animal to human levels of planetary status. The great danger to any civilization — at any one moment — is the threat of breakdown during the time of transition from the established methods of the past to those new and better, but untried, procedures of the future.

지도력이 진보를 좌우한다. 지혜, 통찰력, 및 선견지명은 나라가 지탱되는 데 필수다. 문명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만 정말로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갖춘 현명한 지도자는, 그 인구의 1퍼센트를 넘은 적이 없다.

문명은 진화 사다리 위의 이런 디딤판을 딛고, 빠르게 확장하는 20세기의 문화를 낳은 그 강력한 영향력이 개시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오직 이 필수적인 것들에 충실함으로써, 사람은 오늘날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확실히 살아남도록 마련하면서, 그 문명을 유지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민족들이, **아담** 시대 이후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것에 대한 개략{概略}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런 격렬한 진화의 최종 결과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진보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한 세대가 앞 세대의 업적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이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명이 투쟁해 온 모든 시대의 누적된 추진력의 기세를 등에 업고, 인간 사회가 앞으로 둘 진해 나가고 있다.

[네바돈의 천사장이 후원했음]

81:6.42 (911.7) Leadership is vital to progress. Wisdom, insight, and foresight are indispensable to the endurance of nations. Civilization is never really jeopardized until able leadership begins to vanish. And the quantity of such wise leadership has never exceeded one per cent of the population.

81:6.43 (911.8) And it was by these rungs on the evolutionary ladder that civilization climbed to that place where those mighty influences could be initiated which have culminated in the rapidly expanding culture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only by adherence to these essentials can man hope to maintain his present-day civilizations while providing for their continued development and certain survival.

81:6.44 (912.1) This is the gist of the long, long struggle of the peoples of earth to establish civilization since the age of Adam. Present-day culture is the net result of this strenuous evolution. Before the discovery of printing, progress was relatively slow since one generation could not so rapidly benefit from the achievements of its predecessors. But now human society is plunging forward under the force of the accumulated momentum of all the ages through which civilization has struggled.

81:6.45 (912.2) [Sponsor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82편. 결혼의 진화

⇨ 081

유란시아 책

08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2편
결혼의 진화

섹션

소개

1. 짝짓는 본능
2. 제한하는 금기
3. 초기 결혼의 사회관행
4. 재산 사회관행과 결혼
5. 동족결혼과 족외 결혼
6. 인종 혼합

PAPER 82

THE EVOLUTION OF MARRIAG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ating Instinct
2. The Restrictive Taboos
3. Early Marriage Mores
4. Marriage under the Property Mores
5. Endogamy and Exogamy
6. Racial Mixtures

소개

결혼은--곧 짝짓기는-- 남녀 구별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그런 남녀 구별에 사람이 반응해서 조절한 것이며, 한편 가족생활은, 진화하면서 적응하는 그런 모든 조절에서 발생된 결과의 총합이다. 결혼은 영속적이며; 생물학적 진화에 내재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 진화의 기초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실존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家庭)을 제공했고, 가정은 길고 험한 진화 투쟁 전체에서 더할 나위 없는 광영이다.

종교, 사회, 및 교육 제도는 모두, 문화가 있는 문명의 생존에 필수지만, *가족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역이다*. 어린아이는 기본 생활 대부분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운다.

옛 시대의 인간은, 매우 풍부한 사회 문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소유했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너희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 문명 대부분이 다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로 받으면서도 계속 진화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인간 종족들은, 풍부한 사회 유산과 문화 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교육 기관은

INTRODUCTION

82:0.1 (913.1) MARRIAGE — mating — grows out of bisexuality. Marriage is man's reactional adjustment to such bisexuality, while the family life is the sum total resulting from all such evolutionary and adaptative adjustments. Marriage is enduring; it is not inherent in biologic evolution, but it is the basis of all social evolution and is therefore certain of continued existence in some form. Marriage has given mankind the home, and the home is the crowning glory of the whole long and arduous evolutionary struggle.

82:0.2 (913.2) While religious,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ll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cultural civilization, *the family is the master civilizer*. A child learns most of the essentials of life from his family and the neighbors.

82:0.3 (913.3) The humans of olden times did not possess a very rich social civilization, but such as they had they faithfully and effectively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you should recognize that most of these civilizations of the past continued to evolve with a bare minimum of other institutional influences because the home was effectively functioning. Today the human races possess a rich social and cultural heritage, and it should be

로서의 가족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wisely and effectively passed on to succeeding generations. The family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must be maintained.

1. 짝짓는 본능

남녀 사이에 개성이 크게 다름에도, 성욕은 인류의 번식을 위해서 남녀가 확실히 합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 본능은, 사랑, 헌신, 및 부부간 충절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것들 대부분을 인간이 체험하기 훨씬 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짝짓기는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짝짓기가 사회에 미치는 진화적 영향이다.

성적{性的} 관심과 욕구는 원시 민족들에게 지배적인 열정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번식하는 체험 전체는,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꾸민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우 높게 문명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뺏는 성적 열정은, 주로 인종이 혼합된 때문인데, **노족속**과 **아담족속**의 조합된 상상력과 미적{美的} 감상이 진화 본성을 자극하는 곳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런 **안드족속** 유전형질을 진화 인종들이 너무나 제한된 정도만 흡수했기 때문에, 더 예민한 성의식{意識}과 더 강력한 교미 충동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처럼 각성되고 자극받은 동물적 열정에, 충분한 자제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진화 인종들 중에서, 홍색인이 가장 고상한 성적 규범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과 관련해서 성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암시한다:

1. 문명의 상대적 진보. 문명은, 유용한 방향에서 그리고 사회관행에 따라서 성욕이 만족되기를 점점 더 요구한다.

2. 어떤 민족에게나 들어있는 **안드족속** 혈통의 양{量}. 성{性}은 그런 집단들 사이에서, 육체적 본성과 감정적 본성 중에서 가장 높거나 낮은 것을 모두 표현하게 됐다.

상익 인종들은 정상적인 동물적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성{異性}의 아름다움과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감상하는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적 매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 원시 인종들에서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섞이지 않은 이런 인종들은, 한정적인 교미 본능을 갖고 있지만, 사회의 통제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다.

짝짓기 본능은 인간의 가장 유력한 육체적 추진력이며; 개인을 만족시킨다는 구실로,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보다 종족의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시하도록, 이기적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이는 하나의 감정이다.

1. THE MATING INSTINCT

82:1.1 (913.4) Notwithstanding the personality gulf between men and women, the sex urge is sufficient to insure their coming together for the reproduction of the species. This instinct operated effectively long before humans experienced much of what was later called love, devotion, and marital loyalty. Mating is an innate propensity, and marriage is its evolutionary social repercussion.

82:1.2 (913.5) Sex interest and desire were not dominating passions in primitive peoples; they simply took them for granted. The entire reproductive experience was free from imaginative embellishment. The all-absorbing sex passion of the more highly civilized peoples is chiefly due to race mixtures, especially where the evolutionary nature has been stimulated by the associative imagination and beauty appreciation of the Nodites and Adamites. But this Andite inheritance was absorbed by the evolutionary races in such limited amounts as to fail to provide sufficient self-control for the animal passions thus quickened and aroused by the endowment of keener sex consciousness and stronger mating urges. Of the evolutionary races, the red man had the highest sex code.

82:1.3 (913.6) The regulation of sex in relation to marriage indicates:

82:1.4 (913.7) 1. The relative progress of civilization. Civilization has increasingly demanded that sex be gratified in useful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mores.

82:1.5 (914.1) 2. The amount of Andite stock in any people. Among such groups sex has become expressive of both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 both the physical and emotional natures.

82:1.6 (914.2) The Sangik races had normal animal passion, but they displayed little imagination or appreciation of the beau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e opposite sex. What is called sex appeal is virtually absent even in present-day primitive races; these unmixed peoples have a definite mating instinct but insufficient sex attraction to create serious problems requiring social control.

82:1.7 (914.3) The mating instinct is one of the dominant physical driving forces of human beings; it is the one emotion which, in the guise of individual gratification, effectively tricks selfish man into putting race welfare and perpetuation high above individual ease and personal freedom from responsibility.

하나의 제도로서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를 영속시키려는 생물학적 성향이 사회에서 진화한 것을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이 영속하는 것은, 종족의 이런 교미 충동이 현존함으로써 확보되는데, 이 충동을 막연하게 성적 매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중대한 생물학적 충동은, 온갖 종류의 관련된 본능, 감정, 및 --육체적, 지적, 사회적-- 관습을 자극하는 중추가 된다.

미개인에게, 양식 공급이 어쩔 수 없는 동기가 됐지만, 풍부한 양식을 문명이 보장하게 되자, 성욕이 자주 지배적 충동이 됐으며, 따라서 사회의 규제가 늘 필요하게 됐다.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의 주기가 교미 성향을 규제하지만,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아 통제 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성욕이 전혀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자아 통제를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억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어떤 인간 감정이나 충동도, 이런 강력한 성적 충동만큼 많은 해악과 불행을 낳을 수 없다. 이런 충동을 사회의 규제 아래 이성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어떤 문명이든지 그 현실에 대한 최고 시험이다. 자아 통제, 즉 점점 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진보하는 인류의 계속 증가하는 요구사항이다. 비밀, 불성실, 및 위선(偽善)으로 성적 문제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윤리를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2. 제한하는 금기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 종교, 및 시민사회의 규정이 압박함으로써 성욕을 통제할 역사에 불과하다. 자연계는 개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소위 도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오직 순전히 종족 번식에만 관심을 갖는다. 자연계는 강제로 번식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는 사회가 해결하라고 무관심하게 버려두며, 이처럼 진화 인류에게 늘 따라다니는 주요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회적 모순은, 기본적 본능과 진화 윤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싸움을 발생시킨다.

초기 인종들 가운데서는, 남녀 관계에 대한 규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런 성적 자유 때문에, 매춘이 없었다. 오늘날, 피그미족 및 기타 미개한 집단들에는 결혼하는 관습이 없으며; 이런 민족들을 연구해 보면, 원시 인종들이 단순한 짝짓기 관습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들 시대의 사회관행의 도덕 수준에 비춰서 연구하고 판단해야 한다.

아무튼, 자유로운 성관계는 지독한 야만 수준

82:1.8 (914.4) As an institution, marriage, from its early beginnings down to modern times, pictures the social evolution of the biologic propensity for self-perpetuation. The perpetuation of the evolving human species is made certain by the presence of this racial mating impulse, an urge which is loosely called sex attraction. This great biologic urge becomes the impulse hub for all sorts of associated instincts, emotions, and usages —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social.

82:1.9 (914.5) With the savage, the food supply was the impelling motivation, but when civilization insures plentiful food, the sex urge many times becomes a dominant impulse and therefore ever stands in need of social regulation. In animals, instinctive periodicity checks the mating propensity, but since man is so largely a self-controlled being, sex desire is not altogether periodic; therefore does it become necessary for society to impose self-control upon the individual.

82:1.10 (914.6) No human emotion or impulse, when unbridled and overindulged, can produce so much harm and sorrow as this powerful sex urge. Intelligent submission of this impulse to the regulations of society is the supreme test of the actuality of any civilization. Self-control, more and more self-control, is the ever-increasing demand of advancing mankind. Secrecy, insincerity, and hypocrisy may obscure sex problems, but they do not provide solutions, nor do they advance ethics.

2. THE RESTRICTIVE TABOOS

82:2.1 (914.7) The story of the evolution of marriage is simply the history of sex control through the pressure of social, religious, and civil restrictions. Nature hardly recognizes individuals; it takes no cognizance of so-called morals; it is only and exclusively interested in the reproduction of the species. Nature compellingly insists on reproduction but indifferently leaves the consequential problems to be solved by society, thus creating an ever-present and major problem for evolutionary mankind. This social conflict consists in the unending war between basic instincts and evolving ethics.

82:2.2 (914.8) Among the early races there was little or no regulation of the relations of the sexes. Because of this sex license, no prostitution existed. Today, the Pygmies and other backward groups have no marriage institution; a study of these peoples reveals the simple mating customs followed by primitive races. But all ancient peoples should always be studied and judged in the light of the moral standards of the mores of their own times.

82:2.3 (915.1) Free love, however, has never been in

보다 좋은 평판을 얻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결혼 관례와 부부간 제약조건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짝짓기는, 거의 완전한 성적 분방함으로부터, 비교적 완전하게 성욕을 제한하는 20세기 규범까지, 여러 번 과도기를 거쳐서 진보해 왔다.

부족이 형성되는 최초 단계에서는, 사회관행과 제한적인 금기가 매우 조잡했지만, 그것들로 인해 남녀 사이에 간격이 유지됐고--곧 이것이 정숙함, 질서, 근면함을 장려했고-- 결혼과 가정의 오랜 진화가 시작됐다. 의복, 장신구, 및 종교 의식 {儀式}이 남녀 사이에 다른 관습은, 이런 초기 금기에서 기원했으며, 이 금기가 성적{性的}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타락, 범죄, 및 죄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귀중한 축제의 날, 특히 **5월의 축제**에 모든 성적 규제를 정지시키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보다 한층 더 제한적인 금기의 지배를 받아왔다. 초기의 사회관행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아내에게는 반드시 남편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남자의 성적 자유를 별로 축소시키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성적 자유에 대한 더 많은 금기를 적용했다. 결혼한 여자는, 머리 모양, 의복, 면사포, 격리, 장식품, 반지 등, 구별된 집단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3. 초기 결혼의 사회관행

결혼은, 사람에게 번식하도록--즉 자신을 퍼뜨리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늘 나타나는 생물학적 긴장상태에 대해서 사회 조직체가 제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런 일이며,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서, 짝짓는 사회관행도 유사하게 진화했는데, 그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다. 사회관행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사회 진화가 진보된 곳은 어디든지, 진화하는 제도로서 결혼이 발견될 것이다.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인데:이 두 가지는, 짝짓기의 외부 양상을 규제하는 법적인 사회관행과, 그밖에 남녀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 규제에 대해서 개인은 언제나 반항하며;오랜 세월을 걸친 이런 성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다:자아_유지는 개인 문제이지만 집단이 이를 수행하며;자아_영속은 사회 문제이지만 개인의 충동으로 보장된다.

모든 인종 가운데서 봐왔듯이, 사회관행은, 높이 평가될 때,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결혼의 기준은 언제나, 사회관행의 현행 효력, 그리고 민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good standing above the scale of rank savagery. The moment societal groups began to form, marriage codes and marital restrictions began to develop. Mating has thus progressed through a multitude of transitions from a state of almost complete sex license to the twentieth-century standards of relatively complete sex restriction.

82:2.4 (915.2) In the earliest stages of tribal development the mores and restrictive taboos were very crude, but they did keep the sexes apart — this favored quiet, order, and industry — and the long evolution of marriage and the home had begun. The sex customs of dress, adornment, and religious practices had their origin in these early taboos which defined the range of sex liberties and thus eventually created concepts of vice, crime, and sin. But it was long the practice to suspend all sex regulations on high festival days, especially May Day.

82:2.5 (915.3) Women have always been subject to more restrictive taboos than men. The early mores granted the same degree of sex liberty to unmarried women as to men, but it has always been required of wives that they be faithful to their husbands. Primitive marriage did not much curtail man's sex liberties, but it did render further sex license taboo to the wife. Married women have always borne some mark which set them apart as a class by themselves, such as hairdress, clothing, veil, seclusion, ornamentation, and rings.

3. EARLY MARRIAGE MORES

82:3.1 (915.4) Marriage is the institutional response of the social organism to the ever-present biologic tension of man's unremitting urge to reproduction — self-propagation. Mating is universally natural, and as society evolved from the simple to the complex, there was a corresponding evolution of the mating mores, the genesis of the marital institution. Wherever social evolution has progressed to the stage at which mores are generated, marriage will be found as an evolving institution.

82:3.2 (915.5) There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two distinct realms of marriage: the mores, the laws regulating the external aspects of mating, and the otherwise secret and personal relations of men and women. Always has the individual been rebellious against the sex regulations imposed by society;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is agelong sex problem: Self-maintenance is individual but is carried on by the group; self-perpetuation is social but is secured by individual impulse.

82:3.3 (915.6) The mores, when respected, have ample power to restrain and control the sex urge, as has been shown among all races. Marriage standards have always been a true indicator of the

작동하는지에 대한 참된 척도{尺度}였다. 그러나 초기의 성(性) 및 짝짓기 사회관행은, 변화가 매우 심하고 조잡한 규칙 덩어리였다. 부모, 자녀, 친척, 및 사회 전체가 결혼 규칙에 상반되는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찬양하고 실천해 온 인종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했고, 숫자가 증가됨으로써 살아남았다.

원시 시대에 결혼은 사회 신분을 얻으려고 지불하는 값이었으며;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함의 상징이었다. 미개인은 결혼하는 날을 책무와 성인으로 입문하는 기점으로 여겼다. 어떤 시대에는 결혼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다른 시대에는 종교적 책무로; 또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적 요구조건으로 간주됐다.

초기의 많은 부족은, 결혼 자격으로 흠치는 재주를 요구했고; 후대의 민족들은, 급습해서 약탈하는 그런 행위 대신, 운동 시합과 경쟁하는 경기를 채택했다. 이런 경쟁의 승자에게는 최고의 상이--곧 적령기 신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 가운데서는, 머리를 한 개 이상 소유한 젊은이만 결혼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런 두개골을 살 수도 있었다. 구매를 통해서 아내를 얻는 경향이 줄면서, 수수께끼 풀기 시합으로 아내를 얻었는데, 여러 집단의 흑색인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관습이다.

문명이 진보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남자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혹독한 결혼 시험을 여자들에게 맡겼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결혼 시험에는, 사냥 솜씨, 격투,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량 등이 포함됐다. 신랑은, 적어도 1년간 신부의 가족에게로 가서, 거기에 살면서 노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됐다.

아내의 자격조건은, 힘든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역량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한 양의 농사일을 마치도록 요구됐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으며; 다산{多産} 능력이 그렇게 확인됐다.

옛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치욕으로 또는 심지어 죄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어린이 결혼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결혼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으며, 이것이 어린이 결혼을 촉진시켰는데, 심지어 태어날 때 이뤄졌고, 어떤 때에는 성별(性別)을 조건으로 출생 전에 이뤄지기도 했다. 고대인은 죽은 자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다. 원래 결혼 중매인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협상하도록 고용된 자였다. 죽은 아들의 부모가, 그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이 결혼하도록, 이런 중매인을 주선하곤 했다.

current power of the mores and the functional integrity of the civil government. But the early sex and mating mores were a mass of inconsistent and crude regulations. Parents, children, relatives, and society all had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marriage regulations. But in spite of all this, those races which exalted and practiced marriage naturally evolved to higher levels and survived in increased numbers.

82:3.4 (915.7) In primitive times marriage was the price of social standing; the possession of a wife was a badge of distinction. The savage looked upon his wedding day as marking his entrance upon responsibility and manhood. In one age, marriage has been looked upon as a social duty; in another, as a religious obligation; and in still another, as a political requirement to provide citizens for the state.

82:3.5 (916.1) Many early tribes required feats of stealing as a qualification for marriage; later peoples substituted for such raiding forays, athletic contests and competitive games. The winners in these contests were awarded the first prize — choice of the season's brides. Among the head-hunters a youth might not marry until he possessed at least one head, although such skulls were sometimes purchasable. As the buying of wives declined, they were won by riddle contests, a practice that still survives among many groups of the black man.

82:3.6 (916.2) With advancing civilization, certain tribes put the severe marriage tests of male endurance in the hands of the women; they thus were able to favor the men of their choice. These marriage tests embraced skill in hunting, fighting, and ability to provide for a family. The groom was long required to enter the bride's family for at least one year, there to live and labor and prove that he was worthy of the wife he sought.

82:3.7 (916.3) The qualifications of a wife were the ability to perform hard work and to bear children. She was required to execute a certain piece of agricultural work within a given time. And if she had borne a child before marriage, she was all the more valuable; her fertility was thus assured.

82:3.8 (916.4) The fact that ancient peoples regarded it as a disgrace, or even a sin, not to be married, explains the origin of child marriages; since one must be married, the earlier the better. It was also a general belief that unmarried persons could not enter spiritland, and this was a further incentive to child marriages even at birth and sometimes before birth, contingent upon sex. The ancients believed that even the dead must be married. The original matchmakers were employed to negotiate marriages for deceased individuals. One parent would arrange for these intermediaries to effect the marriage of a dead son with a dead daughter of another family.

후대의 민족들 가운데서는 사춘기가 일반 결혼 연령으로 여겨졌지만, 문명의 진보에 비례해서 나이가 늦어졌다. 사회의 진화 초기에는 남녀 양쪽에 독특한 독신자 계층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소 부족한 개인들이 시작하고 유지했다.

많은 부족은, 신부를 그 남편에게 내주기 직전에, 통치 집단 회원들이 신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허용했다. 이 남자들 각자는 소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시초가 됐다. 어떤 집단에서는 젊은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벌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것은 신부를 전시하는 방에서 신부가 제공하는 성적(性的) 봉사에 대한 대가(代價)로 받은 선물로 이뤄졌다.

어떤 부족은 젊은 남자가 과부 또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했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젊은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만일 둘 다 어린 사람이 짝을 맺도록 허락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어떤 부족은 비슷한 나이의 집단끼리 짝을 맺도록 제한했다. 특정한 연령 집단에게 결혼을 제한시킨 것 때문에, 근친상간 개념이 처음 생겼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떤 사회관행에서는, 과부 신세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서, 과부를 죽이거나 남편 무덤 앞에서 자살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은 항상, 살아남은 과부 탓으로 돌렸다. 어떤 부족은 과부를 산채로 태우기도 했다. 과부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 대개 재혼이 금지됐으므로, 그 여자의 인생은 계속 애도하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회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

현재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관습이 옛날에는 오히려 장려됐다. 원시 시대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 맺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소녀의 순결은 결혼에 큰 장애물이었으며; 소녀가 결혼 전에 아내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반려자를 얻었다는 확신을 그 남자에게 줬기 때문이다.

많은 원시 부족은, 여자가 임신할 때까지 시험적 결혼을 허용했고, 그 후에 결혼 예식이 거행됐으며; 어떤 집단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의 부모가 데려갔고, 결혼은 취소됐다. 사회관행은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런 원시적인 시험적 결혼은, 방종과는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생식력(生殖力)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약혼한 사람은 출산 능력이 인정되자마자 영구 결혼이 이뤄

82:3.9 (916.5) Among later peoples, puberty was the common age of marriage, but this has advanced in direct proportion to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Early in social evolution peculiar and celibate orders of both men and women arose; they were started and maintained by individuals more or less lacking normal sex urge.

82:3.10 (916.6) Many tribes allowed members of the ruling group to have sex relations with the bride just before she was to be given to her husband. Each of these men would give the girl a present,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custom of giving wedding presents. Among some groups it was expected that a young woman would earn her dowry, which consisted of the presents received in reward for her sex service in the bride's exhibition hall.

82:3.11 (916.7) Some tribes married the young men to the widows and older women and then, when they were subsequently left widowers, would allow them to marry the young girls, thus insuring, as they expressed it, that both parents would not be fools, as they conceived would be the case if two youths were allowed to mate. Other tribes limited mating to similar age groups. It was the limitation of marriage to certain age groups that first gave origin to ideas of incest. (In India there are even now no age restrictions on marriage.)

82:3.12 (916.8) Under certain mores widowhood was greatly to be feared, widows being either killed or allowed to commit suicide on their husbands' graves, for they were supposed to go over into spiritland with their spouses. The surviving widow was almost invariably blamed for her husband's death. Some tribes burned them alive. If a widow continued to live, her life was one of continuous mourning and unbearable social restriction since remarriage was generally disapproved.

82:3.13 (917.1) In olden days many practices now regarded as immoral were encouraged. Primitive wives not infrequently took great pride in their husbands' affairs with other women. Chastity in girls was a great hindrance to marriage; the bearing of a child before marriage greatly increased a girl's desirability as a wife since the man was sure of having a fertile companion.

82:3.14 (917.2) Many primitive tribes sanctioned trial marriage until the woman became pregnant, when the regular marriage ceremony would be performed; among other groups the wedding was not celebrated until the first child was born. If a wife was barren, she had to be redeemed by her parents, and the marriage was annulled. The mores demanded that every pair have children.

82:3.15 (917.3) These primitive trial marriages were entirely free from all semblance of license; they were simply sincere tests of fecundity. The contracting individuals married permanently just as

졌다. 현대의 부부가,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손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고,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결혼했다면, 실제로는 그들이 일종의 시험적 결혼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것은 그들보다 덜 문명화된 조상의 정직한 모험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4. 재산 사회관행과 결혼

결혼은 언제나 재산 및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결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고;종교는 도덕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해왔다.

원시 결혼은, 일종의 투자, 즉 경제적 투기였으며;연애하는 용건보다는 사업하는 문제에 더 가까웠다. 옛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결혼했으며;그것을 위해서, 집단, 즉 그들의 부모와 원로{元老}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회관행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기에 효과적이었음은, 많은 현대 민족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문명이 진전되고, 사회관행에서 사유 재산이 더 많이 인정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됐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즉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됐으며;따라서 그것은 초기 법전과 사회관행에서는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합법적 성관계는 이런 선재{先在}된 재산권에서 생겨났다. **구약 성경**은 여자를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란**은 여자가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런 관습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현대의 성에 대한 경계심은 선천적이 아니며;진화하는 사회관행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아내를 빼앗길까 해서 경계하지 않았으며;자기 재산을 보호했을 뿐이다.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엄격하게 성{性}을 책임지게 한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부정{不淨}이 혈통과 상속에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문명의 진행에서 아주 초기부터 사생아는 평판이 나빴다. 처음에는 여자만 간음으로 처벌받았지만;나중에는, 사회관행이 그 상대자에게도 징벌을 내렸고, 오랫동안,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손해 입은 남편이나 아버지 보호자에게 있었다. 현대인도 이런 사회관행을 유지하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간통죄를 인정한다.

순결의 금기가 재산 사회관행의 한 국면으로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soon as fertility was established. When modern couples marry with the thought of convenient divorce in the background of their minds if they are not wholly pleased with their married life, they are in reality entering upon a form of trial marriage and one that is far beneath the status of the honest adventures of their less civilized ancestors.

4. MARRIAGE UNDER THE PROPERTY MORES

82.4.1 (917.4) Marriage has always been closely linked with both property and religion. Property has been the stabilizer of marriage; religion, the moralizer.

82.4.2 (917.5) Primitive marriage was an investment, an economic speculation; it was more a matter of business than an affair of flirtation. The ancients married for the advantage and welfare of the group; wherefore their marriages were planned and arranged by the group, their parents and elders. And that the property mores were effective in stabilizing the marriage institution is borne out by the fact that marriage was more permanent among the early tribes than it is among many modern peoples.

82.4.3 (917.6) As civilization advanced and private property gained further recognition in the mores, stealing became the great crime. Adultery was recognized as a form of stealing, an infringement of the husband's property rights; it is not therefore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earlier codes and mores. Woman started out as the property of her father, who transferred his title to her husband, and all legalized sex relations grew out of these pre-existent property rights. The Old Testament deals with women as a form of property; the Koran teaches their inferiority. Man had the right to lend his wife to a friend or guest, and this custom still obtains among certain peoples.

82.4.4 (917.7) Modern sex jealousy is not innate; it is a product of the evolving mores. Primitive man was not jealous of his wife; he was just guarding his property. The reason for holding the wife to stricter sex account than the husband was because her marital infidelity involved descent and inheritance. Very early in the march of civilization the illegitimate child fell into disrepute. At first only the woman was punished for adultery; later on, the mores also decreed the chastisement of her partner, and for long ages the offended husband or the protector father had the full right to kill the male trespasser. Modern peoples retain these mores, which allow so-called crimes of honor under the unwritten law.

82.4.5 (917.8) Since the chastity taboo had its origin as a phase of the property mores, it applied at first

아니라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됐다. 후대에는 구혼자{求婚者}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했는데, 처녀는 아버지에게 --더 값이 나가는-- 상업적인 자산이었다. 순결이 더 많이 요구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 될 사람이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풍습이 됐다. 여자의 순결에 대한 이 관념이 일단 시작돼서 종족 전체에 퍼지자, 소녀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가둬두는, 즉 여러 해 동안 실제로 감금시키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그후의 기준과 처녀성 시험 때문에 전문적 매춘 계층이 자동으로 생겨났으며;그들은 퇴짜 맞은 신부, 즉 처녀가 아닌 것이 신랑의 어머니에게 들킨 여자들이었다.

to married women but not to unmarried girls. In later years, chastity was more demanded by the father than by the suitor; a virgin was a commercial asset to the father — she brought a higher price. As chastity came more into demand, it was the practice to pay the father a bride fee in recognition of the service of properly rearing a chaste bride for the husband-to-be. When once started, this idea of female chastity took such hold on the races that it became the practice literally to cage up girls, actually to imprison them for years, in order to assure their virginity. And so the more recent standards and virginity tests automatically gave origin to the professional prostitute classes; they were the rejected brides, those women who were found by the grooms' mothers not to be virgins.

5. 동족결혼과 족외 결혼

매우 초기의 미개인은, 종족이 혼합됨으로써 자손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다. 족내번식{族內繁殖}이 항상 나쁘지는 않았지만, 족외번식{族外繁殖}이 항상 더 나았으며, 따라서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 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적 변이와 진보를 위한 선택적 기회를, 족외번식이 훨씬 증대시켰다.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여 생긴 사람들은 더 재능이 많았고, 불리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컸으므로;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는 자들은 사회관행과 더불어 점차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했으며;미개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의 진보된 민족들은 의식적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족내번식이 지나치면 때때로 전반적 허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목격했다.

우수한 혈통의 족내번식은 때로 강력한 부족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들의 족내번식으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놀라운 경우가 사람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을 줬고,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모든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를 점점 더 구체화시켰다.

종교는 오랫동안 족외결혼을 막는 효과적 장벽이었으며;많은 종교 교훈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쳤다. 여자는 대개 동족결혼 풍습을 좋아하고;남자는 족외결혼을 선호한다. 재산이 결혼에 항상 영향을 미쳤고, 씨족에게 소속된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부족 가운데서 남편을 찾도록 여자에게 강요하는 사회관행도 종종 생겨났다. 이런 종류의 규정으로 인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동족결혼은 기술의 비법{秘法}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실행됐으며;숙련된 기능인은 자기 기술을 가족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5. ENDOGAMY AND EXOGAMY

82:5.1 (918.1) Very early the savage observed that race mixture improved the quality of the offspring. It was not that inbreeding was always bad, but that outbreeding was always comparatively better; therefore the mores tended to crystallize in restriction of sex relations among near relatives. It was recognized that outbreeding greatly increased the selective opportunity for evolutionary variation and advancement. The outbred individuals were more versatile and had greater ability to survive in a hostile world; the inbreeders, together with their mores, gradually disappeared. This was all a slow development; the savage did not consciously reason about such problems. But the later and advancing peoples did, and they also made the observation that general weakness sometimes resulted from excessive inbreeding.

82:5.2 (918.2) While the inbreeding of good stock sometimes resulted in the upbuilding of strong tribes, the spectacular cases of the bad results of the inbreeding of hereditary defectives more forcibly impressed the mind of man, with the result that the advancing mores increasingly formulated taboos against all marriages among near relatives.

82:5.3 (918.3) Religion has long been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outmarriage; many religious teachings have proscribed marriage outside the faith. Woman has usually favored the practice of in-marriage; man, outmarriage. Property has always influenced marriage, and sometimes, in an effort to conserve property within a clan, mores have arisen compelling women to choose husbands within their fathers' tribes. Rulings of this sort led to a great multiplication of cousin marriages. In-mating was also practiced in an effort to preserve craft secrets; skilled workmen sought to keep the knowledge of their craft within the family.

우수한 집단은, 고립됐을 때에는 언제나 동족끼리 짝을 맺는 쪽으로 전환됐다. **노드족**은 15만 년 이상 동족결혼을 한 큰 집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후대의 동족결혼 사회관행은 주로 보라색 인종의 전통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부득이 남매(男妹)끼리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은, 초기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드족속**이 한때 점령했던 지역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됐다. **이집트인**은 왕족의 피를 순결하게 지키려는 노력에서 남매간 결혼을 오랫동안 준수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 사이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사촌과 결혼할 우선권이 사촌에게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의 자매와 닮은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런 결합은 **유대인**의 후대 사회관행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남매간 결혼이 처음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회관행 아래서, 자매인 아내가 다른 아내 또는 아내들을 오만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사회 관습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했지만, 살아남은 형제로 하여금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 주도록 요구했다. 동족결혼을 아주 반대할 만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런 규제는 완전히 금기의 문제다.

마침내 족외결혼이 보편화됐는데, 이는 남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었으며; 밖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척(姻戚)들로부터 덜 구속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관계는 치욕의 원인이 됐으며;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 요인이 짝짓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부족 바깥에서 짝을 선택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마침내 씨족 내 결혼을 많은 부족이 금지했고; 또 어떤 부족은 특정한 신분계층과 짝짓는 것을 제한시켰다. 자기와 같은 토털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금기 때문에, 이웃 부족으로부터 여자를 훔쳐오는 관습이 촉진됐다. 나중에는, 친족 관계보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규제됐다. 족내결혼이 현대의 족외결혼 관습으로 바뀌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심지어 족내결혼에 대한 금기가 일반 사람에게 적용된 후에도, 족장이나 왕의 경우에는 왕실의 핏줄을 모으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도록 허용됐다. 사회관행은 대개,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성적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했다.

후대의 **안드족속** 사람들이 출현함으로써, **상익** 인종들은 자기 부족 바깥에서 짝을 찾으려는 욕구가 무척 증대됐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집단들과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에서 살기를 배울 때까지는, 족외결혼이 널리 이행될 수 없었다.

족외결혼 자체가 평화 주동자였으며; 결혼이 이뤄진 부족 사이에서는 적대감이 줄었다. 족외결

82:5.4 (918.4) Superior groups, when isolated, always reverted to consanguineous mating. The Nodites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were one of the great in-marriage groups. The later-day in-marriage mores were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s of the violet race, in which, at first, matings were, perforce, between brother and sister. And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were common in early Egypt, Syria, Mesopotamia, and throughout the lands once occupied by the Andites. The Egyptians long practiced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in an effort to keep the royal blood pure, a custom which persisted even longer in Persia. Among the Mesopotamians, before the days of Abraham, cousin marriages were obligatory; cousins had prior marriage rights to cousins. Abraham himself married his half sister, but such unions were not allowed under the later mores of the Jews.

82:5.5 (919.1) The first move away from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came about under the plural-wife mores because the sister-wife would arrogantly dominate the other wife or wives. Some tribal mores forbade marriage to a dead brother's widow but required the living brother to beget children for his departed brother. There is no biologic instinct against any degree of in-marriage; such restrictions are wholly a matter of taboo.

82:5.6 (919.2) Outmarriage finally dominated because it was favored by the man; to get a wife from the outside insured greater freedom from in-laws. Familiarity breeds contempt; so, as the element of individual choice began to dominate mating, it became the custom to choose partners from outside the tribe.

82:5.7 (919.3) Many tribes finally forbade marriages within the clan; others limited mating to certain castes. The taboo against marriage with a woman of one's own totem gave impetus to the custom of stealing women from neighboring tribes. Later on, marriages were regulated more in accordance with territorial residence than with kinship. There were many steps in the evolution of in-marriage into the modern practice of outmarriage. Even after the taboo rested upon in-marriages for the common people, chiefs and kings were permitted to marry those of close kin in order to keep the royal blood concentrated and pure. The mores have usually permitted sovereign rulers certain licenses in sex matters.

82:5.8 (919.4) The presence of the later Andite peoples had much to do with increasing the desire of the Sangik races to mate outside their own tribes. But it was not possible for out-mating to become prevalent until neighboring groups had learned to live together in relative peace.

82:5.9 (919.5) Outmarriage itself was a peace promoter; marriages between the tribes lessened

혼은 부족의 협조와 군사 동맹을 유도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강대해질 수 있었으므로, 그것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으며; 국가를 세우는 요인이 됐다. 또한 족외결혼은 거래를 위한 접촉이 증대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모험과 탐험은 짝짓는 범위를 넓히도록 공헌했고, 종족 문화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인종적 결혼 사회관행의 모순점은 대체로, 이런 족외결혼 관습과 그에 따른 아내 훔쳐오기, 그리고 다른 부족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독립된 부족 사회관행의 혼합을 초래했다. 동족결혼에 관한 이런 금기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었음은, 여러 단계의 인척 관계, 즉 조금도 핏줄 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친족 간 결혼을 막는 금기에서 잘 나타난다.

6. 인종 혼합

오늘날 세상에는 순수한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 원래의 진화하는 유색 민족들 중에서는 오직 두 가지 대표적인 인종만 세상에 남아 있는데, 황색인과 흑색인이 그들이며; 심지어 이 두 인종도, 사라진 유색 민족들과 많이 혼합됐다. 소위 백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고대의 청색인 자손이지만, **아메리카**의 홍색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인종과 어느 정도 혼합됐다.

여섯 색깔의 **상익** 인종 중에서, 셋은 1차이고 다른 셋은 2차다. 비록 1차 인종--곧 청색, 홍색, 황색--이 여러 면에서 2차 인종보다 우수했더라도, 이 2차 인종은 바람직한 많은 특징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류 혈통들을 흡수했더라면, 1차 민족들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혼혈아”, “잡종”, 그리고 “튀기”를 싫어하는 오늘날의 편견은 대부분, 현대의 인종 잡종교배가, 고려되는 인종 가운데 크게 열등한 종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같은 인종의 퇴화된 혈통들이 근친결혼을 하는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은 자손을 얻는다.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이, 자신의 타락하고 반{反}사회적이며 정신이 박약하고 버림받은 가장 저질적인 계층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제한적 인종 혼합에 거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유형의 몇몇 인종 사이에서 그런 인종 혼합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반대하는 일은 더 줄어들 것이다.

전혀 다른 우수한 혈통들의 혼합은, 새롭고

hostilities. Outmarriage led to tribal co-ordination and to military alliances; it became dominant because it provided increased strength; it was a nation builder. Outmarriage was also greatly favored by increasing trade contacts; adventure and exploration contributed to the extension of the mating bounds and greatly facilitated the cross-fertilization of racial cultures.

82:5.10 (919.6) The otherwise inexplicable inconsistencies of the racial marriage mores are largely due to this outmarriage custom with its accompanying wife stealing and buying from foreign tribes, all of which resulted in a compounding of the separate tribal mores. That these taboos respecting in-marriage were sociologic, not biologic, is well illustrated by the taboos on kinship marriages, which embraced many degrees of in-law relationships, cases representing no blood relation whatsoever.

6. RACIAL MIXTURES

82:6.1 (919.7) There are no pure races in the world today. The early and original evolutionary peoples of color have only two representative races persisting in the world, the yellow man and the black man; and even these two races are much admixed with the extinct colored peoples. While the so-called white race is predominantly descended from the ancient blue man, it is admixed more or less with all other races much as is the red man of the Americas.

82:6.2 (919.8) Of the six colored Sangik races, three were primary and three were secondary. Though the primary races — blue, red, and yellow — were in many respects superior to the three secondary peopl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se secondary races had many desirable traits which would have considerably enhanced the primary peoples if their better strains could have been absorbed.

82:6.3 (920.1) Present-day prejudice against “half-castes,” “hybrids,” and “mongrels” arises because modern racial crossbreeding is, for the greater part, between the grossly inferior strains of the races concerned. You also get unsatisfactory offspring when the degenerate strains of the same race intermarry.

82:6.4 (920.2) If the present-day races of Urantia could be freed from the curse of their lowest strata of deteriorated, antisocial, feeble-minded, and outcast specimens, there would be little objection to a limited race amalgamation. And if such racial mixtures could take place between the highest types of the several races, still less objection could be offered.

82:6.5 (920.3) Hybridization of superior and dissimilar stocks is the secret of the creation of new and

더 강건한 종족이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종족에서도 실제로 있다. 잡종을 통해 힘이 증대되고 번식력이 증가된다. 다양한 민족의 평범하거나 우수한 계층에서 인종 혼합은, 북 아메리카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재 인구에서 보다시피, 창조적 잠재력을 크게 증대시킨다. 그런 꼭짓기가, 낮거나 열등한 계층에서 이뤄질 때에는, 오늘날 남부 **인도**의 민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의력이 줄어든다.

인종 혼합은 새로운 특성의 갑작스런 출현에 크게 기여하며, 우수한 혈통들의 합동으로 그런 교배가 이뤄졌다면, 이 새 특질 역시 우수한 특징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인종들이 열등하고 퇴화된 종족들로 인해 너무 큰 부담을 받는 한, 대량의 인종 혼합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겠지만, 그런 실험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생물학적 고려에서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 때문이다. 심지어 열등한 혈통들 가운데서도, 잡종이 종종 그들의 선조보다 개선된다. 잡종이 종자(種子) 개량을 가져오는 것은, 우성(優性) 유전자의 작용 때문이다. 인종 혼합은, 잡종 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람직한 우성 형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유란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은 인종적 잡종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발생했다. 인간 혈통들이 섞인 결과에 의한 심각한 부조화의 위험이 너무 과장돼 왔다. “혼혈아”의 주된 문제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백인종과 **폴리네시아** 인종을 섞는 **핏케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인종 남자와 **폴리네시아인** 여자는 꽤 좋은 인종적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백인종, 홍인종, 및 황인종 사이의 혼혈은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이고, 새로운 많은 특질을 즉각 형성할 것이다. 이런 세 민족은 1차 **상익** 인종에 속한다. 백인종과 흑인종의 혼혈은 당대의 결과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런 1대 혼혈 자손이 너무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이 그런 자손을 낳으려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런 백색-흑색 혼혈은, 어떤 다른 면에서 조금 못하기는 해도, 인류의 탁월한 표본이다.

1차 **상익** 인종이 2차 **상익** 인종과 혼합했을 때, 전자(前者)의 희생으로 후자(後者)는 상당히 개선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규모로 이뤄진다면, 2차 집단의 향상을 위해서 1차 인종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여함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한다면, 2차 **상익** 인종은 1차 인종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하기도 하다.

more vigorous strains. And this is true of plants, animals, and the human species. Hybridization augments vigor and increases fertility. Race mixtures of the average or superior strata of various peoples greatly increase *creative* potential, as is shown in the present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 When such matings take place between the lower or inferior strata, creativity is diminished, as is shown by the present-day peoples of southern India.

82:6.6 (920.4) Race blending greatly contributes to the sudden appearance of *new* characteristics, and if such hybridization is the union of superior strains, then these new characteristics will also be *superior* traits.

82:6.7 (920.5) As long as present-day races are so overloaded with inferior and degenerate strains, race intermingling on a large scale would be most detrimental, but most of the objections to such experiments rest on social and cultural prejudices rather than on biological considerations. Even among inferior stocks, hybrids often are an improvement on their ancestors. Hybridization makes for species improvement because of the role of the *dominant genes*. Racial intermixtur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 larger number of the desirable *dominants* being present in the hybrid.

82:6.8 (920.6) For the past hundred years more racial hybridization has been taking place on Urantia than has occurred in thousands of years. The danger of gross disharmonies as a result of crossbreeding of human stocks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The chief troubles of “half-breeds” are due to social prejudices.

82:6.9 (920.7) The Pitcairn experiment of blending the white and Polynesian races turned out fairly well because the white men and the Polynesian women were of fairly good racial strains. Interbreeding between the highest types of the white, red, and yellow races would immediately bring into existence many new and biologically effective characteristics. These three peoples belong to the primary Sangik races. Mixtures of the white and black races are not so desirable in their immediate results, neither are such mulatto offspring so objectionable as social and racial prejudice would seek to make them appear. Physically, such white-black hybrids are excellent specimens of humanity, notwithstanding their slight inferiority in some other respects.

82:6.10 (920.8) When a primary Sangik race amalgamates with a secondary Sangik race, the latter is considerably improved at the expense of the former. And on a small scale — extending over long periods of time — there can be little serious objection to such a sacrificial contribution by the primary races to the betterment of the secondary groups. Biologically considered, the secondary Sangiks were in some respects superior to the

결국, 인간 종족의 진짜 위험은, 인종들이 서로 교배하는 데 따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어떤 위험보다는, 오히려 문명화된 다양한 민족 중에서 열등하고 퇴보된 혈통들이 제한 없이 번식하는 데서 발견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primary races.

^{82:6.11 (921.1)} After all, the real jeopardy of the human species is to be found in the unrestrained multiplication of the inferior and degenerate strains of the various civilized peoples rather than in any supposed danger of their racial interbreeding.

^{82:6.12 (921.2)}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83편. 결혼 제도

⇨ 082

유란시아 책

08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3편
결혼 제도

섹션

소개

1.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2. 구혼과 약혼
3. 구매와 지참금
4. 결혼 예식
5. 복수의 결혼
6. 진정한 일부일체제 --부부의 결혼
7. 혼인의 취소
8. 결혼의 이상화

소개

이 글은 결혼 제도의 초기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결혼은, 집단의 절제 없는 문란한 짝짓기로부터, 많은 변화와 적응 단계를 거쳐서, 결혼 규범이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진보했는데, 그 규범은, 결국 한 쌍의 짝이 맺어짐으로써, 즉 가장 고상한 사회 체제인 가정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결혼은 여러 번 위험에 빠졌고, 결혼 사회관행은, 지탱하기 위해서 재산과 종교에 몹시 의존해 왔지만; 결혼과 그 결과로 생기는 가정을 영원토록 유지시킨 실제 영향력은, 가장 원시적 미개인이든지 또는 가장 문화화 된 필사자든지, 남녀가 서로 상대방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단순하고 타고난 생물학적 사실이다.

성욕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동물보다 나은 어떤 존재로 만들도록 이끌렸다. 자아를 중시하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성관계는, 자아를 부정하는 어떤 결과를 수반하며, 이타적 임무와 종족을 유익하게 하는 가정(家庭)의 여러 책임을 말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성(性)은, 인식되지 않고

PAPER 83
THE MARRIAGE INSTITUTION

SECTIONS

Introduction

1. Marriage as a Societal Institution
2. Courtship and Betrothal
3. Purchase and Dowry
4. The Wedding Ceremony
5. Plural Marriages
6. True Monogamy — Pair Marriage
7. The Dissolution of Wedlock
8. The Idealization of Marriage

INTRODUCTION

83:0.1 (922.1) THIS is the recital of the early beginnings of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t has progressed steadily from the loose and promiscuous matings of the herd through many variations and adaptations, even to the appearance of those marriage standards which eventually culminated in the realization of pair mating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to establish a home of the highest social order.

83:0.2 (922.2) Marriage has been many times in jeopardy, and the marriage mores have drawn heavily on both property and religion for support; but the real influence which forever safeguards marriage and the resultant family is the simple and innate biologic fact that men and women positively will not live without each other, be they the most primitive savages or the most cultured mortals.

83:0.3 (922.3) It is because of the sex urge that selfish man is lured into making something better than an animal out of himself. The self-regarding and self-gratifying sex relationship entails the certain consequences of self-denial and insures the assumption of altruistic duties and numerous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개인을 문명화시키는 장본인이 돼왔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적 충동이, 자동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몰아붙이고 결국 사랑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race-benefiting home responsibilities. Herein has sex been the unrecognized and unsuspected civilizer of the savage; for this same sex impulse automatically and unerringly *compels man to think* and eventually *leads him to love*.

1.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결혼은, 남녀가 다른 생식기관을 가졌다는 육체적 사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장치다. 그런 제도로서의 결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

1. 개인의 성관계를 규제하는 경우.

2. 혈통, 유전, 상속, 및 사회 계층을 규제하는 경우, 이것은 더 오래된 원래의 기능이었다.

결혼에서 발생하는 가족 자체가, 재산에 대한 사회관행과 함께, 결혼 제도를 안정시켰다. 결혼을 안정시킨 다른 유력한 요소는, 자존심, 허영심, 기사도(騎士道) 정신, 의무, 및 종교적 신념 등이다. 그러나 결혼이 높은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 가족은 명백하게 인간 제도요, 진화로 발전한 결과다. 결혼은 사회 제도이지, 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종교가 결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함은 사실이지만, 독점적으로 결혼을 규제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원시의 결혼은 본래 산업이었으며; 심지어 현대에도 종종 사회 업무 또는 사업 업무다. **인드족** 속 혈통의 혼합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진보하는 문명의 사회관행의 결과로서, 결혼은 서서히 상호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됐으며, 어버이 자격을 이루고, 시적(詩的)이고 애정 깊고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됐다. 어쨌든, 원시의 짝짓기에서는 소위 낭만적인 사랑과 선택이 거의 없었다. 초기 시대에 남편과 아내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그러나 옛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의 애정이 성적 매력과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같이 살고 일하기 위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

2. 구혼과 약혼

원시의 결혼은 반드시 소년과 소녀의 부모가 계획했다. 이런 관습과,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시대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서는, 결혼 중개인, 즉 전문 결혼 중매인이 활동했다. 이 결혼 중매인은 처음에는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사제(司祭)였다. 결혼은 원래 집단의 용무였고; 그 다음에는 가족의 문제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개인의 모험이 됐다.

1. MARRIAGE AS A SOCIETAL INSTITUTION

83:1.1 (922.4) Marriage is society's mechanism designed to regulate and control those many human relations which arise out of the physical fact of bisexuality. As such an institution, marriage functions in two directions:

83:1.2 (922.5) 1. In the regulation of personal sex relations.

83:1.3 (922.6) 2. In the regulation of descent, inheritance, succession, and social order, this being its older and original function.

83:1.4 (922.7) The family, which grows out of marriage, is itself a stabilizer of the marriage institution together with the property mores. Other potent factors in marriage stability are pride, vanity, chivalry, duty, and religious convictions. But while marriages may be approved or disapproved on high, they are hardly made in heaven. The human family is a distinctly human institution, an evolutionary development. Marriage is an institution of society, not a department of the church. True, religion should mightily influence it but should not undertake exclusively to control and regulate it.

83:1.5 (922.8) Primitive marriage was primarily industrial; and even in modern times it is often a social or business affair.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mixture of the Andite stock and as a result of the mores of advancing civilization, marriage is slowly becoming mutual, romantic, parental, poetical, affectionate, ethical, and even idealistic. Selection and so-called romantic love, however, were at a minimum in primitive mating. During early times husband and wife were not much together; they did not even eat together very often. But among the ancients, personal affection was not strongly linked to sex attraction; they became fond of one another largely because of living and working together.

2. COURTSHIP AND BETROTHAL

83:2.1 (923.1) Primitive marriages were always planned by the parents of the boy and girl. The transition stage between this custom and the times of free choosing was occupied by the marriage broker or professional matchmaker. These matchmakers were at first the barbers; later, the priests. Marriage was originally a group affair; then a family matter; only recently has it

원시의 결혼은 매력이 아니라 강압으로 인해 성사됐다. 초기 시대에, 여자에게는 성적 초연함이 없었고, 오직 사회관행이 주입됨으로 말미암는 성적 열등의식만 있었다. 탈취가 거래보다 앞섰듯이, 포로와 결혼하는 것이 계약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앞섰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 부족의 나이는 남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로 되기를 묵인하려 했는데; 자기 또래의 다른 부족 남자 손에 잡히기를 더 좋아했다. 가짜로 도망가기는, 강제로 포로 되기와 후대에 매력으로 구혼(求婚)하기 사이의 과도기 단계였다.

초기 유형의 결혼 예식은 탈출을 흉내 내는 것이었는데, 일종의 도망치는 연습이었고, 한때 흔한 풍습이었다. 나중에는, 가짜로 사로잡는 행위가 정규 결혼 예식의 일부가 됐다. 오늘날 소녀가 “포로” 되기를 거부하는 듯 보이는 것, 즉 결혼에 대해서 입 다무는 것은 모두 옛 관습의 잔재다. 신부를 안아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대의 여러 풍습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훔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여자는 결혼에서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는 완전한 자유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지만, 더 총명한 여자들은 지혜를 현명하게 발휘해서 이런 규제를 항상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구혼(求婚)에서 대개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항상 그렇지 않았다. 여자는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공식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구혼과 결혼의 모든 국면에서 여자가 맡는 역할이 늘어나게 됐다.

결혼하기 전 구혼 기간에, 사랑, 낭만, 및 개인 선택의 증가는, **안드족속**이 세계 종족들에게 기여한 것이다. 남녀 사이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으며; 진보하는 많은 민족은, 효용성과 소유권이라는 구시대의 동기 대신, 성적 매력이라는 어느 정도 이상화된 개념을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 인생의 반려자를, 냉정한 계산으로 선택하던 것을, 성적 충동과 애정을 느끼는 감정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원래 약혼은 결혼과 동일했으며; 초기의 사람들 사이에서 약혼 기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관례였다. 최근 들어서, 약혼과 결혼 사이 기간에 성관계를 막는 금기가 조성된 것은 종교 때문이었다.

3. 구매와 지참금

옛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래 합동하려면, 어떤 확실한 보증, 즉 재산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를 구매(購買)하는 비용은,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릴 경우에 남편이 손해 보도록 신고되는 별

become an individual adventure.

83:2.2 (923.2) Coercion, not attraction, was the approach to primitive marriage. In early times woman had no sex aloofness, only sex inferiority as inculcated by the mores. As raiding preceded trading, so marriage by capture preceded marriage by contract. Some women would connive at capture in order to escape the domination of the older men of their tribe; they preferred to fall into the hands of men of their own age from another tribe. This pseudo elopement was the transition stage between capture by force and subsequent courtship by charming.

83:2.3 (923.3) An early type of wedding ceremony was the mimic flight, a sort of elopement rehearsal which was once a common practice. Later, mock capture became a part of the regular wedding ceremony. A modern girl's pretensions to resist "capture," to be reticent toward marriage, are all relics of olden customs. The carrying of the bride over the threshold is reminiscent of a number of ancient practices, among others, of the days of wife stealing.

83:2.4 (923.4) Woman was long denied full freedom of self-disposal in marriage, but the more intelligent women have always been able to circumvent this restriction by the clever exercise of their wits. Man has usually taken the lead in courtship, but not always. Woman sometimes formally, as well as covertly, initiates marriage. And as civilization has progressed, women have had an increasing part in all phases of courtship and marriage.

83:2.5 (923.5) Increasing love, romance, and personal selection in premarital courtship are an Andite contribution to the world races. The relations between the sexes are evolving favorably; many advancing peoples are gradually substituting somewhat idealized concepts of sex attraction for those older motives of utility and ownership. Sex impulse and feelings of affection are beginning to displace cold calculation in the choosing of life partners.

83:2.6 (923.6) The betrothal was originally equivalent to marriage; and among early peoples sex relations were conventional during the engagement. In recent times, religion has established a sex taboo on the period between betrothal and marriage.

3. PURCHASE AND DOWRY

83:3.1 (923.7) The ancients mistrusted love and promises; they thought that abiding unions must be guaranteed by some tangible security,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purchase price of a wife was regarded as a forfeit or deposit which the husband was doomed to lose in case of divorce or

금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됐다. 신부의 값이 일단 지불되고 나서, 남편의 낙인(烙印)을 볼로 지저서 신부의 몸에 새기는 것을, 많은 부족이 허용했다. **아프리카** 남자는 여전히 아내를 구매한다. 그들은 사랑해서 얻은 아내, 즉 백인 남자의 아내를 고양이로 비유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자를 얻기 때문이다.

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신부 전시회는, 아내로서의 값을 더 높여보려는 의도에서 행했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처럼 팔린 것은 아니었다--후대의 부족들 사이에서 그런 아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또한 냉정한 돈 거래만 항상 여자를 사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내 구매에서 봉사하는 것도 현찰과 똑같이 취급됐다. 아내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다른 면에서 호감을 주는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양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욕심 많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원로들이 아버지에게 유효한 압력을 가해서, 그의 요구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애인과 함께 달아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아버지는 딸을 파는 것처럼 보이기를 싫어하게 됐고, 그리하여 신부 구매(購買) 비용을 계속 받는 한편, 그 비용과 거의 동등한 값이 나가는 선물을 그 쌍에게 주는 관습이 시작됐다. 그리고 후대에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일이 중지되면서, 이런 선물은 신부 지참금으로 바뀌게 됐다.

지참금 관념은 신부가 자립했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노예로서의 아내 또는 소유물로서의 반려자로 여기던 시대와는 매우 달라졌음을 암시했다.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에게 그 지참금을 완전히 돌려주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신부와 신랑 양측 부모에게 서로 보증금을 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 위한, 실제적인 결혼 보증금이었다. 구매에서 지참금으로 바뀌는 과도기에는, 아내가 구매된 경우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소속됐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족에게 소속됐다.

4. 결혼 예식

결혼 예식은, 결혼이 다만 두 개인의 결정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동체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에서 발생했다. 짝짓기는 개인의 역할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의 관심사였다.

마술, 제례식, 및 예식(禮式)이 옛 사람들의 전체 생활을 에워쌌고, 결혼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중요시함에 따라, 결혼 예식은 갈수록 더 허세부리는 것이 됐다. 초기 결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재산 소유권에서 한 요소였고, 따라서 법적 예식이 필요했으며, 한편 나중에 출생하는 자녀의 사회적 지

desertion. Once the purchase price of a bride had been paid, many tribes permitted the husband's brand to be burned upon her. Africans still buy their wives. A love wife, or a white man's wife, they compare to a cat because she costs nothing.

83:3.2 (924.1) The bride shows were occasions for dressing up and decorating daughters for public exhibition with the idea of their bringing higher prices as wives. But they were not sold as animals — among the later tribes such a wife was not transferable. Neither was her purchase always just a cold-blooded money transaction; service was equivalent to cash in the purchase of a wife. If an otherwise desirable man could not pay for his wife, he could be adopted as a son by the girl's father and then could marry. And if a poor man sought a wife and could not meet the price demanded by a grasping father, the elders would often bring pressure to bear upon the father which would result in a modification of his demands, or else there might be an elopement.

83:3.3 (924.2) As civilization progressed, fathers did not like to appear to sell their daughters, and so, while continuing to accept the bride purchase price, they initiated the custom of giving the pair valuable presents which about equaled the purchase money. And upon the later discontinuance of payment for the bride, these presents became the bride's dowry.

83:3.4 (924.3) The idea of a dowry was to convey the impression of the bride's independence, to suggest far removal from the times of slave wives and property companions. A man could not divorce a dowered wife without paying back the dowry in full. Among some tribes a mutual deposit was made with the parents of both bride and groom to be forfeited in case either deserted the other, in reality a marriage bond.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purchase to dowry, if the wife were purchased, the children belonged to the father; if not, they belonged to the wife's family.

4. THE WEDDING CEREMONY

83:4.1 (924.4) The wedding ceremony grew out of the fact that marriage was originally a community affair, not just the culmination of a decision of two individuals. Mating was of group concern as well as a personal function.

83:4.2 (924.5) Magic, ritual, and ceremony surrounded the entire life of the ancients, and marriage was no exception. As civilization advanced, as marriage became more seriously regarded, the wedding ceremony became increasingly pretentious. Early marriage was a factor in property interests, even as it is today, and

위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원시인에게는 기록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결혼 예식을 많은 사람이 목격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결혼 예식이 약혼과 비슷했고, 다만 같이 살려는 의향을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이뤄졌지만;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이뤄졌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부모가 딸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전부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예식이었고, 그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줬다. 많은 **레반트** 민족 가운데서는 모든 형식 절차를 생략하고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홍색인은 처음으로 더 복잡한 결혼 예식을 개발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불임이 영적 존재의 음모 때문이라고 여겼으므로, 다산(多産)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마술 또는 종교 예식절차가 결혼과 결합됐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 마법(魔法)을 많이 사용했으며; 심지어 결혼 당사자의 탄생 별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성가에게 상담하기도 했다. 한때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공식 순서였다.

사람들은 행운의 날을 추구했는데, 목요일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겼으며, 보름달 뜨는 날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신혼부부에게 곡식을 던지는 것이, **근동**에서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으며; 이것은 다산을 보증한다고 여겨지는 마술적 제례였다. 어떤 **동양** 민족은 이런 목적으로 쌀을 사용한다.

불과 물은, 유령과 악한 영들을 반드시 물리치는 최고의 도구로 간주됐으며; 따라서 제단(祭壇)의 불과 촛불뿐 아니라 성수(聖水)를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결혼식에서 흔하게 징표로 이용됐다. 가짜로 결혼식 날을 잡아 놓은 다음에 갑자기 행사를 연기시킴으로써 유령과 영들을 따돌리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신혼부부에게 짓궂게 굴고 신혼여행 중인 그들에게 장난치는 일은 모두 이런 오랜 옛 시대의 잔재인데, 옛날에는 영들이 보는 앞에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질투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것은, 신부를 변장시킴으로써 영들로 하여금 신부를 못 알아보게 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샘하는 다른 영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잔재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교** 사회관행에서, 차가 도착된 곳부터 교회 제단 앞까지 양탄자를 까는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therefore required a legal ceremony, while the social status of subsequent children demanded the widest possible publicity. Primitive man had no records; therefore must the marriage ceremony be witnessed by many persons.

83:4.3 (924.6) At first the wedding ceremony was more on the order of a betrothal and consisted only in public notification of intention of living together; later it consisted in formal eating together. Among some tribes the parents simply took their daughter to the husband; in other cases the only ceremony was the formal exchange of presents, after which the bride's father would present her to the groom. Among many Levantine peoples it was the custom to dispense with all formality, marriage being consummated by sex relations. The red man was the first to develop the more elaborate celebration of weddings.

83:4.4 (924.7) Childlessness was greatly dreaded, and since barrenness was attributed to spirit machinations, efforts to insure fecundity also led to the association of marriage with certain magical or religious ceremonials. And in this effort to insure a happy and fertile marriage, many charms were employed; even the astrologers were consulted to ascertain the birth star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one time the human sacrifice was a regular feature of all weddings among well-to-do people.

83:4.5 (925.1) Lucky days were sought out, Thursday being most favorably regarded, and weddings celebrated at the full of the moon were thought to be exceptionally fortunate. It was the custom of many Near Eastern peoples to throw grain upon the newlyweds; this was a magical rite which was supposed to insure fecundity. Certain Oriental peoples used rice for this purpose.

83:4.6 (925.2) Fire and water were always considered the best means of resisting ghosts and evil spirits; hence altar fires and lighted candles, as well as the baptismal sprinkling of holy water, were usually in evidence at weddings. For a long time it was customary to set a false wedding day and then suddenly postpone the event so as to put the ghosts and spirits off the track.

83:4.7 (925.3) The teasing of newlyweds and the pranks played upon honeymooners are all relics of those far-distant days when it was thought best to appear miserable and ill at ease in the sight of the spirits so as to avoid arousing their envy. The wearing of the bridal veil is a relic of the times when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isguise the bride so that ghosts might not recognize her and also to hide her beauty from the gaze of the otherwise jealous and envious spirits. The bride's feet must never touch the ground just prior to the ceremony.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it is still the custom under the Christian mores to stretch carpets from the carriage landing to the church altar.

결혼 예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 가운데 하나는, 그 결합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장하려고, 사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침실을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공식 결혼 제례가 이행되기 훨씬 전에 행해졌다. 결혼에 관한 사회 관행이 진화한 이 시대 동안,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밤에 침실에 들어서서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이 완료된 것에 대한 법적 증인이 됐다.

운과 관계되는 요소, 즉 결혼 이전에 온갖 시험이 있었음에도, 어떤 결혼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원시인은 결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 사제와 마법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 현대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도록 직접 이끌었다. 그러나 결혼은 대체로, 계약을 맺는 부모들의 결정--나중에는 당사자들의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오랫동안 인정된 반면, 지난 500년 동안에는 교회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했고, 지금은 감히 결혼을 선포하고 있다.

5. 복수의 결혼

결혼의 초기 역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그 부족의 남자들에게 속했다. 나중에는 한 여자가 한 번에 오직 한 남편만 가질 수 있었다. 한_번에_한_남자라는 관습은, 집단으로 하는 난교{亂交}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허락된 반면, 그 남편은 그런 임시 관계를 마음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느슨하게 규제되는 이 결합은, 무리 지어 사는 상태와 구별돼서, 한 쌍으로서 사는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이런 결혼 발전 단계에서 어린이는 대개 어머니에게 속했다.

꼭짓기 진화에서 다음 단계는 집단 결혼이었다. 이런 공동 결혼 단계가, 가족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끼어들었는데, 한 쌍의 연합을 영구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결혼의 사회관행이 아직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와 자매의 결혼은 이런 계열에 속했는데; 한 가족의 다섯 형제가, 다른 가족의 다섯 자매와 결혼하곤 했다. 전세계에서 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결혼이 점차 진화돼서, 여러 유형의 집단 결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집단 결혼은 주로 토tem 사회관행에 규제를 받았다. 가족생활은 서서히 확실하게 발전했는데, 자녀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성 및 결혼의 규제가 보장함으로써, 부족 자체의 생존을 유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집단 결혼은, 더 진보된 부족들 가운데서 다 부다처{多夫多妻}--곧 일부다처와 일처다부-- 관습이 나타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일처다부는 한 번도 일반화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여왕 또는 부유한 여자의 경우로 제한됐으며; 더욱이 여러 형제가 한 아내를 갖는 것은 관례상 가족의 직무

83:4.8 (925.4) One of the most ancient forms of the wedding ceremony was to have a priest bless the wedding bed to insure the fertility of the union; this was done long before any formal wedding ritual was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in the evolution of the marriage mores the wedding guests were expected to file through the bedchamber at night, thus constituting legal witness to the consummation of marriage.

83:4.9 (925.5) The luck element, that in spite of all premarital tests certain marriages turned out bad, led primitive man to seek insurance protection against marriage failure; led him to go in quest of priests and magic. And this movement culminated directly in modern church weddings. But for a long time marriage was generally recognized as consisting in the decisions of the contracting parents — later of the pair — while for the last five hundred years church and state have assumed jurisdiction and now presume to make pronouncements of marriage.

5. PLURAL MARRIAGES

83:5.1 (925.6) In the early history of marriage the unmarried women belonged to the men of the tribe. Later on, a woman had only one husband at a time. This practice of *one-man-at-a-time* was the first step away from the promiscuity of the herd. While a woman was allowed but one man, her husband could sever such temporary relationships at will. But these loosely regulated associations were the first step toward living pairwise in distinction to living herdwise. In this stage of marriage development children usually belonged to the mother.

83:5.2 (925.7) The next step in mating evolution was the *group marriage*. This communal phase of marriage had to intervene in the unfolding of family life because the marriage mores were not yet strong enough to make pair associations permanent. The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belonged to this group; five brothers of one family would marry five sisters of another. All over the world the looser forms of communal marriage gradually evolved into various types of group marriage. And these group associations were largely regulated by the totem mores. Family life slowly and surely developed because sex and marriage regulation favored the survival of the tribe itself by insuring the survival of larger numbers of children.

83:5.3 (926.1) Group marriages gradually gave way before the emerging practices of polygamy — polygyny and polyandry — among the more advanced tribes. But polyandry was never general, being usually limited to queens and rich women; furthermore, it was customarily a family affair, one

었다. 신분계층과 경제적 제한 때문에, 여러 남자가 한 아내로 만족해야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경우라도 그 여자는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었고, 다른 남자들은 공유되는 자손의 “삼촌”으로서 대충 참고 지냈다.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목적으로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지키던 관습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개인의 결합보다 가족의 직무였던 시대의 잔재{殘在}였다.

여러 시대에서 일부다처제는 네 종류의 아내를 인정했다:

1. 예식을 치른 아내, 즉 합법적인 아내.
2. 애정을 느끼고 허락된 아내.
3. 첩, 즉 계약상의 아내.
4. 노예 아내.

모든 아내가 동등한 신분을 갖고 모든 자녀가 똑같이 취급되는 진정한 일부다처제는 아주 드물었다. 대개, 심지어 복수{複數}의 결혼에서도, 우두머리 아내, 즉 신분상 반려자가 가정을 지배했다. 그 여자만 제례적 결혼 예식을 치렀고, 신분상 아내와 특별한 합의에 따라서가 아니면, 구매되거나 지참금을 지불한 그런 배우자의 자녀들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

신분상 아내가 반드시 사랑받는 아내일 필요는 없었으며; 초기 시대에는 대개 그렇지 않았다. 사랑 받는 아내 또는 애인은, 인종들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할 때까지, 특히 진화하는 부족들이 **늦속속** 및 **아담속속**과 섞이기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금기의 아내--곧 법적 신분을 갖는 한 명의 아내--로 인해, 첩을 두는 사회관행이 만들어졌다. 이런 사회관행 아래서는 한 남자가 한 아내만 둘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리 많은 첩과 성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았다. 첩을 두는 제도는 일부일처제로 전환되는 디딤돌이었고, 공공연한 일부다처제에서 탈피하는 첫걸음이었다. **유대인, 로마인, 및 중국인**은, 아내의 하녀를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후대에는, **유대인** 가운데서처럼, 남편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자녀는 법적 아내를 어머니로 여겼다.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옛 금기가, 일부다처제를 크게 촉진시켰다. 원시 시대의 여자는, 자주 아이를 낳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늙었다. (과중한 일이 맡겨진 그런 아내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경우에 매달 한 주 동안 혼자 있도록 조치한 사실 덕분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녀 출산으로 자주 지쳤던 아내는, 더 젊은 아내, 즉 해산{解産}과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도록 남편에게 요청하곤 했다. 따라서 나이 많은 배우자는 새로 얻은 아내를 대개 환영했으며; 옛날에는 정적

wife for several brothers. Caste and economic restrictions sometimes made it necessary for several men to content themselves with one wife. Even then, the woman would marry only one, the others being loosely tolerated as “uncles” of the joint progeny.

83:5.4 (926.2) The Jewish custom requiring that a man consort with his deceased brother's widow for the purpose of “raising up seed for his brother,” was the custom of more than half the ancient world. This was a relic of the time when marriage was a family affair rather than an individual association.

83:5.5 (926.3) The institution of polygyny recognized, at various times, four sorts of wives:

83:5.6 (926.4) 1. The ceremonial or legal wives.

83:5.7 (926.5) 2. Wives of affection and permission.

83:5.8 (926.6) 3. Concubines, contractual wives.

83:5.9 (926.7) 4. Slave wives.

83:5.10 (926.8) True polygyny, where all the wives are of equal status and all the children equal, has been very rare. Usually, even with plural marriages, the home was dominated by the head wife, the status companion. She alone had the ritual wedding ceremony, and only the children of such a purchased or dowered spouse could inherit unless by special arrangement with the status wife.

83:5.11 (926.9) The status wife was not necessarily the love wife; in early times she usually was not. The love wife, or sweetheart, did not appear until the races were considerably advanced, more particularly after the blending of the evolutionary tribes with the Nodites and Adamites.

83:5.12 (926.10) The taboo wife — one wife of legal status — created the concubine mores. Under these mores a man might have only one wife, but he could maintain sex relations with any number of concubines. Concubinage was the steppingstone to monogamy, the first move away from frank polygyny. The concubines of the Jews, Romans, and Chinese were very frequently the handmaidens of the wife. Later on, as among the Jews, the legal wife was looked upon as the mother of all children born to the husband.

83:5.13 (926.11) The olden taboos on sex relations with a pregnant or nursing wife tended greatly to foster polygyny. Primitive women aged very early because of frequent childbearing coupled with hard work. (Such overburdened wives only managed to exist by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were put in isolation one week out of each month when they were not heavy with child.) Such a wife often grew tired of bearing children and would request her husband to take a second and younger wife, one able to help with both

질투심이 전혀 없었다.

아내의 숫자는 오직 그들을 부양하는 남자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될 뿐이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많은 숫자의 자녀를 원했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가 필요했다. 이런 여러 아내 가운데 다수는, 단순한 노동자, 즉 노예 아내에 불과했다.

인간의 관습은 진화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후궁{後宮}을 두는 목적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다수의 혈족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지배자는 한때, 후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후궁을 해산시켰다. 불만을 품은 아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성난 친족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지배자를 몰아냈고 즉석에서 처단했다.

6.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일부일처제는 독차지함이며;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곤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명백한 최선책이다.

최초의 일부일처제는, 환경의 압력, 즉 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제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며,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사람에게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노족속**과 **아담족속**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며, 모든 진보된 인종에게 중대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해 왔다.

갈대아의 부족들은, 아내가 그 배우자에게, 둘째 아내나 첩을 얻지 않겠다고 결혼 전에 서약하게 하는 권리를 인정했으며;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모두 일부일처 결혼을 선호했다. 조상숭배, 결혼을 성례{聖禮}로 간주하는 **그리스도교**의 잘못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일부일처제를 촉진시켰다. 심지어 생활 표준의 향상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래했을 무렵에, 문명화된 모든 세계는 실제로 이론상 일부일처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실제적인 부부의 결혼을 실천하는 데 익숙해졌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상적인 부부의 결혼은 결국 독점적인 성관계와 비슷한 것이며, 일부일처 제도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요구조건에 협조하고 그 조건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새롭고 개선된 이런 사회 체제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childbearing and the domestic work. The new wives were therefore usually hailed with delight by the older spouses; there existed nothing on the order of sex jealousy.

83:5.14 (926.12) The number of wives was only limited by the ability of the man to provide for them. Wealthy and able men wanted large numbers of children, and since the infant mortality was very high, it required an assembly of wives to recruit a large family. Many of these plural wives were mere laborers, slave wives.

83:5.15 (927.1) Human customs evolve, but very slowly. The purpose of a harem was to build up a strong and numerous body of blood kin for the support of the throne. A certain chief was once convinced that he should not have a harem, that he should be contented with one wife; so he promptly dismissed his harem. The dissatisfied wives went to their homes, and their offended relatives swept down on the chief in wrath and did away with him then and there.

6. TRUE MONOGAMY — PAIR MARRIAGE

83:6.1 (927.2) Monogamy is monopoly; it is good for those who attain this desirable state, but it tends to work a biologic hardship on those who are not so fortunate. But quite regardless of the effect on the individual, monogamy is decidedly best for the children.

83:6.2 (927.3) The earliest monogamy was due to force of circumstances, poverty. Monogamy is cultural and societal, artificial and unnatural, that is, unnatural to evolutionary man. It was wholly natural to the purer Nodites and Adamites and has been of great cultural value to all advanced races.

83:6.3 (927.4) The Chaldean tribes recognized the right of a wife to impose a premarital pledge upon her spouse not to take a second wife or concubine; both the Greeks and the Romans favored monogamous marriage. Ancestor worship has always fostered monogamy, as has the Christian error of regarding marriage as a sacrament. Even the elevation of the standard of living has consistently militated against plural wives. By the time of Michael's advent on Urantia practically all of the civilized world had attained the level of theoretical monogamy. But this passive monogamy did not mean that mankind had become habituated to the practice of real pair marriage.

83:6.4 (927.5) While pursuing the monogamic goal of the ideal pair marriage, which is, after all, something of a monopolistic sex association, society must not overlook the unenviable situation of those unfortunate men and women who fail to

남녀의 난처한 상황을 사회가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경쟁사회의 경기장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관행이 강요하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또는 다수의 제한조건 때문일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룩한 사람에게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지만, 혼자 쓸쓸히 살아가도록 소외된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틀림없다.

불행한 소수의 무리들은,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항상 참을 수밖에 없지만, 혜택을 입은 대다수 사람은, 자신보다 운이 덜 따른 동료들을 반드시 친절함과 동정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모든 생물학적 욕구를 채워줄만한 이상적인 남녀 협력관계를 이룩한 반열에서 회원권을 얻지 못한 이 동료들은, 발전하는 사회 진화의 가장 고상한 사회관행의 허용 아래서, 그 대가{代價}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일부일처는, 인간의 성 생활의 진화에서 이상적 목표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럴 것이다. 진정한 부부 결혼이라는 이 이상{理想}은 자아_부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계약 맺은 상대방 가운데 한 편 또는 양 편이, 모든 인간적 덕행의 정점, 즉 강한 자아_통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실패한다.

일부일처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진화와 구별해서 사회 문명이 진보되는 정도를 재는 척도다. 일부일처제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 문명의 즉각적인 보존과 더 향상된 발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다. 그것은 정서의 섬세함과, 도덕적 성품의 세련됨, 그리고 일부다처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성장에 기여했다. 한 여자가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동안에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

부부의 결혼은, 긴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협동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데, 이것들은 부모의 행복, 자녀의 복지, 및 사회의 효율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유치한 강요로 시작된 결혼은, 자아_문화, 자아_통제, 자아_표현, 그리고 자아_영속이라는 훌륭한 제도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7. 혼인의 취소

결혼 사회관행이 초기에 진화할 때, 결혼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느슨한 합동이었고, 자녀는 언제나 어머니를 따랐으며;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결속은 본능적인 것이었고, 사회관행의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작용해 왔다.

원시 민족들 가운데서는, 대략 절반의 결혼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헤어지는 가장 흔한

find a place in this new and improved social order, even when having done their best to co-operate with, and enter into, its requirements. Failure to gain mates in the social arena of competition may be due to insurmountable difficulties or multitudinous restrictions which the current mores have imposed. Truly, monogamy is ideal for those who are in, but it must inevitably work great hardship on those who are left out in the cold of solitary existence.

83:6.5 (927.6) Always have the unfortunate few had to suffer that the majority might advance under the developing mores of evolving civilization; but always should the favored majority look with kindness and consideration on their less fortunate fellows who must pay the price of failure to attain membership in the ranks of those ideal sex partnerships which afford the satisfaction of all biologic urges under the sanction of the highest mores of advancing social evolution.

83:6.6 (927.7) Monogamy always has been, now is, and forever will be the idealistic goal of human sex evolution. This ideal of true pair marriage entails self-denial, and therefore does it so often fail just because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deficient in that acme of all human virtues, rugged self-control.

83:6.7 (927.8) Monogamy is the yardstick which measures the advance of social civilization as distinguished from purely biologic evolution. Monogamy is not necessarily biologic or natural, but it is indispensable to the immediate mainten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civilization. It contributes to a delicacy of sentiment, a refinement of moral character, and a spiritual growth which are utterly impossible in polygamy. A woman never can become an ideal mother when she is all the while compelled to engage in rivalry for her husband's affections.

83:6.8 (928.1) Pair marriage favors and fosters that intim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co-operation which is best for parental happiness, child welfare, and social efficiency. Marriage, which began in crude coercion, is gradually evolving into a magnificent institution of self-culture, self-control, self-expression, and self-perpetuation.

7. THE DISSOLUTION OF WEDLOCK

83:7.1 (928.2) In the early evolution of the marital mores, marriage was a loose union which could be terminated at will, and the children always followed the mother; the mother-child bond is instinctive and has functioned regardless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mores.

83:7.2 (928.3) Among primitive peoples only about one half the marriages proved satisfactory. The

원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고, 항상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갔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는 영{靈} 세계에서 뱀이 된다고 믿었다. 더 원시적인 사회관행 하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자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런 기준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20세기까지도 유지돼 왔다.

사회관행이 진화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을 발전시켰는데: 평범한 결혼은 이혼을 허용했고, 사제가 맺어준 결혼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내를 구매하기와 아내의 지참금의 시작은, 결혼의 실패에 대한 재산 벌금으로 이용됨으로써, 이혼을 현저히 줄였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구식{舊式}의 재산 요소가 현대의 많은 결합을 안정시킨다.

공동체의 평판과 재산 특권이 좋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결혼 금기와 사회관행을 유지하도록 항상 설득해 왔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은 꾸준한 진보를 이룩했고, 현대의 세계에서는 진보된 기초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곧 새로운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들 가운데 불만이 널리 퍼짐으로써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진보된 종족들 가운데서는, 사회 진화가 갑작스럽게 가속화된 결과로 이런 조정의 격변{激變}이 이뤄지지만, 그보다 덜 진보된 민족들 가운데서는 결혼이 계속 번성하며, 더 오래된 사회관행의 지도 아래서 서서히 개선된다.

결혼에 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몹시 개인적인, 사랑의 동기가, 더 구식{舊式}이고 오랫동안 확립돼 온, 재산의 동기를, 새로 갑자기 대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결혼 제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은 결혼하는 동기는 언제나 실제 결혼 윤리를 훨씬 초월했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결혼에 대한 **서양**의 이상{理想}은, 자아 중심적이고 겨우 부분적으로 통제했을 뿐인, 종족들의 성 충동을, 갑작스럽게 멀리 앞질러갔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관행의 일시적 붕괴 또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지나온 긴 세월 내내 결혼의 진짜 시험은 끊임없는 애정표현이었는데, 이는 모든 가족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무슨 것을 해도 용서받고, 허영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만족시키도록 교육받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버릇없는 두 젊은이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곧 스스로 삼가고, 절충하고, 헌신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는 일생의 동역관계--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현대의 **서양** 민족들 가운데서 증가하는 이혼 경향은 대체로, 구혼{求婚} 단계로 들어가는 고도의 상상력과 환상적 낭만에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여자의 개인적 자유가 커지고 경제적 해방이 늘어남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된다. 쉬운 이

most frequent cause for separation was barrenness, which was always blamed on the wife; and childless wives were believed to become snakes in the spirit world. Under the more primitive mores, divorce was had at the option of the man alone, and these standards have persisted to the twentieth century among some peoples.

83:7.3 (928.4) As the mores evolved, certain tribes developed two forms of marriage: the ordinary, which permitted divorce, and the priest marriage, which did not allow for separation. The inauguration of wife purchase and wife dowry, by introducing a property penalty for marriage failure, did much to lessen separation. And, indeed, many modern unions are stabilized by this ancient property factor.

83:7.4 (928.5) The social pressure of community standing and property privileges has always been potent in the maintenance of the marriage taboos and mores. Down through the ages marriage has made steady progress and stands on advanced ground in the modern world, notwithstanding that it is threateningly assailed by widespread dissatisfaction among those peoples where individual choice — a new liberty — figures most largely. While these upheavals of adjustment appear among the more progressive races as a result of suddenly accelerated social evolution, among the less advanced peoples marriage continues to thrive and slowly improve under the guidance of the older mores.

83:7.5 (928.6) The new and sudden substitution of the more ideal but extremely individualistic love motive in marriage for the older and long-established property motive, has unavoidably caused the marriage institution to become temporarily unstable. Man's marriage motives have always far transcended actual marriage morals, and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Occidental ideal of marriage has suddenly far outrun the self-centered and but partially controlled sex impulses of the races. The presence of large numbers of unmarried persons in any society indicates the temporary breakdown or the transition of the mores.

83:7.6 (928.7) The real test of marriage, all down through the ages, has been that continuous intimacy which is inescapable in all family life. Two pampered and spoiled youths, educated to expect every indulgence and full gratification of vanity and ego, can hardly hope to make a great success of marriage and home building — a lifelong partnership of self-effacement, compromise, devotion, and unselfish dedication to child culture.

83:7.7 (929.1) The high degree of imagination and fantastic romance entering into courtship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increasing divorce tendencies among modern Occidental peoples, all of which is further complicated by woman's greater personal

혼은, 그것이 자아_통제의 부족이나 정상적인 인간성 조정이 실패한 결과일 때, 극심한 개인적 고뇌와 인종적 고통을 통해서 아주 최근에 사람이 벗어나게 됐던, 바로 그런 미숙한 사회 단계로 곧장 되돌아가게 할 뿐이다.

그러나 사회가 아이와 젊은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한, 사회 체제가 충분한 혼전(婚前)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숙한 젊은이의 이상주의(理想主義)가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한, 이혼은 계속 유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집단이 젊은이의 결혼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한, 이혼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 안전장치로 작용해야만 하며, 이것은 진화하는 사회관행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시대 동안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옛 사람들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현대의 조급하고 불운한 결혼 가운데 다수는, 젊은 남녀가 짝짓는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한시켰던 고대의 관습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모순은,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이상화(理想化) 시키면서도, 이 두 가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8. 결혼의 이상화

가정(家庭)으로 귀결되는 결혼은, 정말로 사람의 가장 고상한 제도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적이며; 결코 성례(聖禮)로 여기지 말았어야 했다. **센족속** 제사장들이 결혼을 종교 제례식으로 만들었지만; **에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짝짓기는 순전히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제도로서 계속돼 왔다.

인간의 연합을 신성한 연합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 결혼과_가정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합동은, 진화 세계에서 필사자의 물질적 기능이다. 정말로, 진보를 향한 남편과 아내의 진지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영적 진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이 반드시 신성시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적 진보는, 인간의 노력을 다른 방향에 진지하게 몰두한 결과로 생긴다.

결혼은, **조울사**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미가엘**과 인간 형제들 사이의 우애에도 비교될 수 없다. 그런 관계는, 어떤 점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관계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결혼의 의미에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freedom and increased economic liberty. Easy divorce, when the result of lack of self-control or failure of normal personality adjustment, only leads directly back to those crude societal stages from which man has emerged so recently and as the result of so much personal anguish and racial suffering.

83:7.8 (929.2) But just so long as society fails to properly educate children and youths, so long as the social order fails to provide adequate premarital training, and so long as unwise and immature youthful idealism is to be the arbiter of the entrance upon marriage, just so long will divorce remain prevalent. And in so far as the social group falls short of providing marriage preparation for youths, to that extent must divorce function as the social safety valve which prevents still worse situations during the ages of the rapid growth of the evolving mores.

83:7.9 (929.3) The ancients seem to have regarded marriage just about as seriously as some present-day people do. And it does not appear that many of the hasty and unsuccessful marriages of modern times are much of an improvement over the ancient practices of qualifying young men and women for mating. The great inconsistency of modern society is to exalt love and to idealize marriage while disapproving of the fullest examination of both.

8. THE IDEALIZATION OF MARRIAGE

83:8.1 (929.4) Marriage which culminates in the home is indeed man's most exalted institution, but it is essentially human; it should never have been called a sacrament. The Sethite priests made marriage a religious ritual; but for thousands of years after Eden, mating continued as a purely social and civil institution.

83:8.2 (929.5) The likening of human associations to divine associations is most unfortunate. The union of husband and wife in the marriage-home relationship is a material function of the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rue, indeed, much spiritual progress may accrue consequent upon the sincere human efforts of husband and wife to progres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marriage is necessarily sacred. Spiritual progress is attendant upon sincere application to other avenues of human endeavor.

83:8.3 (929.6) Neither can marriage be truly compared to the relation of the Adjuster to man nor to the fraternity of Christ Michael and his human brethren. At scarcely any point are such relationships comparable to the association of husband and wife. And it is most unfortunate that the human misconception of these relationships has produced so much confusion as to the status

결혼이 신{神}의 행위로 인해 완성됐다고, 어떤 필사자 집단들이 상상하는 것 역시 유감스럽다. 그런 신념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환경이나 소망과 상관없이, 결혼한 상태가 취소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직접 이끈다. 그러나 결혼이 해체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격**이 그런 합동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어떤 두 사물 또는 사람을 일단 합쳐놓으셨다면, 신의 뜻이 그들의 분리를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합쳐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인 결혼의 경우에, 과연 누가 재판자리에 앉아서, 어떤 결혼은 본질과 근원에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그에 비해 어떤 결혼은 우주의 감독관들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는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저 높은 곳의 구체들에는 이상적인 결혼이 있다. 각 지역 체계의 수도에서는, 결혼이라는 합동에서 그리고 자손을 낳고 기르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물질 아들** 및 **딸**들이 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합동을 보여준다. 결국, 필사자의 이상적 결혼은 **인간적 견지에서** 신성하다.

결혼은, 언제나 현세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사람이 가진 최고의 꿈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비록 이런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일은 드물더라도, 그 꿈은 영광스런 이상으로서 지속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더 위대한 분투를 하도록, 진보하는 인류를 항상 끌어들이는다. 그러나 젊은 남녀는, 가족생활의 상호연합에 따른 고된 요구사항에 뛰어들기 전에, 결혼의 현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배워야 하며, 이상화(理想化)시키는 젊은이다운 태도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실망감으로 조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상화가 포기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꿈은 가족생활의 장래 목표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족생활이 실제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깨닫는 데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자각을 주는 동시에 유익하다.

결혼의 이상은 요즈음 크게 진전됐으며;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그 배우자와 실제로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 가족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성{性}의 정절과 함께, 후손을 기르기 위한 충실한 협력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새로운 개정판의 이런 결혼조차, 모든 인간성과 개성의 상호독점권을 부여할 만큼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혼은 개인주의적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화하는 사회 협동체인데, 현재 사회관행 아래서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으며, 금기로 규제되고, 사회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of marriage.

83:8.4 (929.7) It is also unfortunate that certain groups of mortals have conceived of marriage as being consummated by divine action. Such beliefs lead directly to the concept of the indissolubility of the marital state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or wish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ut the very fact of marriage dissolution itself indicates that Deity is not a conjoining party to such unions. If God has once joined any two things or persons together, they will remain thus joined until such a time as the divine will decrees their separation. But, regarding marriage, which is a human institution, who shall presume to sit in judgment, to say which marriages are unions that might be approved by the universe supervisors in contrast with those which are purely human in nature and origin?

83:8.5 (930.1) Nevertheless, there is an ideal of marriage on the spheres on high. On the capital of each local system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God do portray the height of the ideals of the union of man and woman in the bonds of marriage and for the purpose of procreating and rearing offspring. After all, the ideal mortal marriage is *humanly* sacred.

83:8.6 (930.2) Marriage always has been and still is man's supreme dream of temporal ideality. Though this beautiful dream is seldom realized in its entirety, it endures as a glorious ideal, ever luring progressing mankind on to greater strivings for human happiness. But young men and women should be taught something of the realities of marriage before they are plunged into the exacting demands of the interassociations of family life; youthful idealization should be tempered with some degree of premarital disillusionment.

83:8.7 (930.3) The youthful idealization of marriage should not, however, be discouraged; such dreams are the visualization of the future goal of family life. This attitude is both stimulating and helpful providing it does not produce an insensitivity to the realization of the practical and commonplace requirements of marriage and subsequent family life.

83:8.8 (930.4) The ideals of marriage have made great progress in recent times; among some peoples woman enjoys practically equal rights with her consort. In concept, at least, the family is becoming a loyal partnership for rearing offspring, accompanied by sexual fidelity. But even this newer version of marriage need not presume to swing so far to the extreme as to confer mutual monopoly of all personality and individuality. Marriage is not just an individualistic ideal; it is the evolving social partnership of a man and a woman, existing and functioning under the current mores, restricted by the taboos, and enforc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ociety.

20세기에 이뤄지는 결혼은, 과거 시대의 것들과 비교할 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에 관한 제도는 현재 심각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여자의 특권, 즉 지난 세대들의 사회관행의 느린 진화에서 매우 오랫동안 부인됐던 권리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사회 조직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문제들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83:8.9 (930.5) Twentieth-century marriages stand high in comparison with those of past ages, notwithstanding that the home institution is now undergoing a serious testing because of the problems so suddenly thrust upon the social organization by the precipitate augmentation of woman's liberties, rights so long denied her in the tardy evolution of the mores of past generations.

83:8.10 (930.6)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84편. 결혼과 가족생활

⇨ 083

유란시아 책

08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4편
결혼과 가족생활

섹션

소개

1. 원시적 부부 결합
2. 초기의 모계_가족
3.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가족
4. 초기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5.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의 여자
6. 남자와 여자의 협력
7. 가족생활의 이상
8. 자아_만족의 위험성

PAPER 84
MARRIAGE AND FAMILY LIFE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Pair Associations
2. The Early Mother-Family
3. The Family under Father Dominance
4. Woman's Status in Early Society
5. Woman under the Developing Mores
6. The Partnership of Man and Woman
7. The Ideals of Family Life
8. Dangers of Self-Gratification

소개

물질적 필요가 결혼의 기초를 세웠고, 성욕 {性慾}은 결혼을 미화{美化}했으며, 종교는 결혼을 인가하고 강화했으며, 국가는 결혼을 요구하고 조정했으며, 한편 후대에, 진화하는 사랑은 문명의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제도인 가정을 낳고 창조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비로소 정당화하고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가, 교육하려는 모든 노력의 중심과 본질이 돼야 한다.

짝짓기는, 정도가 다른 자아_만족과 관련된, 순전히 자아를_존속시키려는 행동이며;가정을 건설하는 결혼은 주로 자아를_유지하는 문제이며, 사회의 진화를 수반한다. 사회 자체는 가족 단위가 집합된 체계다. 개인은 행성의 요소로서 매우 일시적이다--가족만이 사회 진화에서 계속 존재하는 매개체다. 가족은, 문화와 지식의 강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경로다.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다. 결혼은 자아_유지에 협동하고 자아_영속{永續}에 협력함으로써 생겨났는데, 자아_만족 요소는 대개 부수적

INTRODUCTION

84:0.1 (931.1) MATERIAL necessity founded marriage, sex hunger embellished it, religion sanctioned and exalted it, the state demanded and regulated it, while in later times evolving love is beginning to justify and glorify marriage as the ancestor and creator of civilization's most useful and sublime institution, the home. And home building should be the center and essence of all educational effort.

84:0.2 (931.2) Mating is purely an act of self-perpetuation associated with varying degrees of self-gratification; marriage, home building, is largely a matter of self-maintenance, and it implies the evolution of society. Society itself is the aggregated structure of family units. Individuals are very temporary as planetary factors — only families are continuing agencies in social evolution. The family is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river of culture and knowledge flow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84:0.3 (931.3) The home is basically a sociologic institution. Marriage grew out of co-operation in self-maintenance and partnership in self-

이다. 그럼에도, 가정은 인간 실존에 필수적인 세 가지 기능 전부를 포함하며, 한편 생명체 번식은 가정을 근본적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性)은 다른 모든 사회 활동으로부터 가정을 돋보이게 한다.

1. 원시적 부부 결합

결혼은 성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았으며;성관계는 결혼에 따르는 것이었다. 원시인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내, 자녀, 및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성욕을 만족시켰다.

여자는 자식에 대한 육신적 및 감정적 애착 때문에, 남자와 협동하는 데 의존했고, 이것이 결혼이라는 보호 장치 속으로 여자를 몰아넣었다. 그러나 어떤 명백한 생물학적 충동도, 남자를 결혼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그를 붙잡아 두는 힘은 훨씬 약했다. 결혼이 남자에게 매력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었고, 그 식욕이 미개한 남자를 여자에게로, 그리고 여자의 자녀들이 공유하는 원시 은신처로 끌어당겼다.

결혼은 성관계에 따른 책무를 의식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발생된 것도 아니었다. 원시인은, 성적 쾌락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한때는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었다. 미개인은, 초기에는 아기가 영 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며;임신은 진화하는 유령인 어떤 영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음식물과 흉안{凶眼} 역시 처녀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한편 후대에는 생명체의 시작을 호흡 및 햇빛과 관련시키는 믿음이 있었다.

초기의 여러 민족은 유령을 바다와 관련시켰으며;따라서 처녀는 목욕하는 습관에서 크게 제한받았으며;젊은 여자는,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밀물 때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불구자로 태어난 아기 또는 조산{早産}한 아기는, 부주의한 목욕 또는 심술궂은 영이 활동한 결과 때문에 여자 몸속으로 들어올 길을 발견한 동물의 새끼로 간주됐다. 당연히, 미개인은 그렇게 태어난 자손을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시키는 유령이 여자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계몽의 첫 단계가 됐다. 그 후로 사람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유전적 요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지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모는 여전히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자녀를 기르려고 한다.

perpetuation, the element of self-gratification being largely incidental. Nevertheless, the home does embrace all three of the essential functions of human existence, while life propagation makes it the fundamental human institution, and sex sets it off from all other social activities.

1. PRIMITIVE PAIR ASSOCIATIONS

84:1.1 (931.4) Marriage was not founded on sex relations; they were incidental thereto. Marriage was not needed by primitive man, who indulged his sex appetite freely without encumbering himself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wife, children, and home.

84:1.2 (931.5) Woman, because of physical and emotional attachment to her offspring, is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the male, and this urges her into the sheltering protection of marriage. But no direct biologic urge led man into marriage — much less held him in. It was not love that made marriage attractive to man, but food hunger which first attracted savage man to woman and the primitive shelter shared by her children.

84:1.3 (931.6) Marriage was not even brought about by the conscious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of sex relations. Primitive man comprehended no connection between sex indulgence and the subsequent birth of a child. It was once universally believed that a virgin could become pregnant. The savage early conceived the idea that babies were made in spiritland; pregnancy wa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a woman's being entered by a spirit, an evolving ghost. Both diet and the evil eye were also believed to be capable of causing pregnancy in a virgin or unmarried woman, while later beliefs connected the beginnings of life with the breath and with sunlight.

84:1.4 (932.1) Many early peoples associated ghosts with the sea; hence virgins were greatly restricted in their bathing practices; young women were far more afraid of bathing in the sea at high tide than of having sex relations. Deformed or premature babies were regarded as the young of animals which had found their way into a woman's body as a result of careless bathing or through malevolent spirit activity. Savages, of course, thought nothing of strangling such offspring at birth.

84:1.5 (932.2) The first step in enlightenment came with the belief that sex relations opened up the way for the impregnating ghost to enter the female. Man has since discovered that father and mother are equal contributors of the living inheritance factors which initiate offspring. But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many parents still endeavor to keep their children in more or less ignorance as to the origin of human life.

번식 기능에는 어머니_자녀 관계가 수반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소 무지한 부류의 가족도 유지될 수 있었다. 모성애(母性愛)는 본능이며; 결혼이 그랬듯이, 사회관행에서 기원되지 않았다. 모든 포유동물의 모성애는, 지방우주의 보조 정신_영들의 내재적 재능이며, 그 강도와 헌신은, 반드시 그 종(種)의 무기력한 유아기{幼兒期}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강력하고 본능적이며, 따라서 원시 시대의 여자로 하여금 수많은 생소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했고, 무수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성애는, 남자와의 모든 투쟁에서 여자에게 항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감정적 방해요소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종족에서 모성애의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야심, 이기주의, 종교적 신념 등이 그 본능을 꺾을 수도 있다.

어머니와_자녀의 관계는 결혼도 가정도 아니지만, 그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솟아나온 핵심이었다. 이런 임시 동역관계가,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을 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짝짓기 진화에서 큰 발전이 이뤄졌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초기 부부의 대립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연합의 느슨함에도, 살아남을 확률은 이런 남_녀 간 동역관계로 인해 크게 증진됐다. 가족과 자손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 협동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남자 또는 두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우세하다. 남녀가 짝을 맺는 이런 일이, 살아남는 능력을 증대시켰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 됐다. 성(性)에 따른 노동 분화 역시 편안함을 제공했고 행복을 증대시켰다.

2. 초기의 모계_가족

여자의 주기적 월경과 아이 낳는 과정에서 흘리는 많은 피로 인해, 피가 아기를 조성한다는(심지어 혼의 근원이라는) 추측이 초기 시대부터 이뤄졌고, 인간관계에서 혈연(血緣) 개념이 생겨나게 했다. 초기 시대에는 모든 후손이 여자 계통을 따라서 계수 됐는데, 이것이 상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유일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혈연에서 생겨났으므로, 원시의 가족은 필연적으로 모계(母系)_가족이었으며; 많은 부족이 이런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했다. 모계_가족은, 유랑민 무리의 집단 결혼 단계로부터, 일부다처 및 일부일처 부계(父系)_가족이라는, 후대의 개선된 가정생활 단계로 옮겨가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도기였다. 모계_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었으며; 부계_가족은,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이었다. 다른 면에서 진취적인 **이로쿼이**가 진정한 국가를 이루

84:1.6 (932.3) A family of some simple sort was insured by the fact that the reproductive function entails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Mother love is instinctive; it did not originate in the mores as did marriage. All mammalian mother love is the inherent endowment of the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and is in strength and devotion alway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helpless infancy of the species.

84:1.7 (932.4) The mother and child relation is natural, strong, and instinctive, and one which, therefore, constrained primitive women to submit to many strange conditions and to endure untold hardships. This compelling mother love is the handicapping emotion which has always placed woman at such a tremendous disadvantage in all her struggles with man. Even at that, maternal instinct in the human species is not overpowering; it may be thwarted by ambition, selfishness, and religious conviction.

84:1.8 (932.5) While the mother-child association is neither marriage nor home, it was the nucleus from which both sprang. The great advance in the evolution of mating came when these temporary partnerships lasted long enough to rear the resultant offspring, for that was homemaking.

84:1.9 (932.6) Regardless of the antagonisms of these early pairs, notwithstanding the looseness of the association, the chances for survival were greatly improved by these male-female partnerships. A man and a woman, co-operating, even aside from family and offspring, are vastly superior in most ways to either two men or two women. This pairing of the sexes enhanced survival and was the very beginning of human society. The sex division of labor also made for comfort and increased happiness.

2. THE EARLY MOTHER-FAMILY

84:2.1 (932.7) The woman's periodic hemorrhage and her further loss of blood at childbirth early suggested blood as the creator of the child (even as the seat of the soul) and gave origin to the blood-bond concept of human relationships. In early times all descent was reckoned in the female line, that being the only part of inheritance which was at all certain.

84:2.2 (932.8) The primitive family, growing out of the instinctive biologic blood bond of mother and child, was inevitably a mother-family; and many tribes long held to this arrangement. The mother-family was the only possible transition from the stage of group marriage in the horde to the later and improved home life of the polygamous and monogamous father-families. The mother-family was natural and biologic; the father-family i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he persistence of

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아메리카** 홍색인 가운데서 모계_가족이 지속된 것이었다.

모계_가족의 사회관행 아래서는, 아내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세를 누렸으며; 가족을 감독하는 데서, 아내의 남자 형제 및 그들의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흔히 자녀들을 따라서 다시 지어지곤 했다.

가장 초기의 종족들은 아버지의 공로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다고 믿거나, 또는 어머니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게 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 모계_가족이 부계_가족으로 전환된 후에는, 아이 낳는 공로를 아버지가 온전히 가졌고, 임신한 여자에 대한 많은 금기는, 나중에 그 남편도 포함시킬 만큼 더 확장됐다. 아버지 될 사람은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일을 멈췄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서 3일내지 8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계속 침실에 남아서 축하 인사를 받았으며;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고안된, 초기 사회관행 가운데 일부였다.

처음에는 남자가 아내의 족속에게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후대에는 남자가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마친 후에, 아내와 자녀를 본래의 자기 족속에게 데려올 수 있게 됐다. 모계_가족으로부터 부계_가족으로 변환된 것은, 달리 의미가 없는데도, 왜 어떤 유형의 사촌간 결혼은 금지하면서, 똑같은 인척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은 인정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사냥꾼의 사회관행이 지나가고, 목축이 시작되면서 식량 공급 통제권이 남자에게 넘어가자, 모계_가족은 급속히 사라지게 됐다. 모계_가족이 사라진 단순한 이유는, 새롭게 형성되는 부계_가족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에게 주어진 힘으로는, 남편_아버지에게 집중된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는 자녀를 임신하면서, 계속된 권한과 늘어나는 집안의 권력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 등장하는 아내 훔치기와 후대에 이뤄진 아내 구매(購買)가, 모계_가족이 사라지도록 재촉했다.

모계_가족에서 부계_가족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변화는, 인간 종족이 이제까지 수행했던, 가장 급진적이고 완전히 180도 방향이 전환되는 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즉시 사교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가족을 이루는 모험이 증가했다.

the mother-family among the North American red men is one of the chief reasons why the otherwise progressive Iroquois never became a real state.

84:2.3 (933.1) Under the mother-family mores the wife's mother enjoyed virtually supreme authority in the home; even the wife's brothers and their sons were more active in family supervision than was the husband. Fathers were often renamed after their own children.

84:2.4 (933.2) The earliest races gave little credit to the father, looking upon the child as coming altogether from the mother. They believed that children resembled the father as a result of association, or that they were “marked” in this manner because the mother desired them to look like the father. Later on, when the switch came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the father took all credit for the child, and many of the taboos on a pregnant woman were subsequently extended to include her husband. The prospective father ceased work as the time of delivery approached, and at childbirth he went to bed, along with the wife, remaining at rest from three to eight days. The wife might arise the next day and engage in hard labor, but the husband remained in bed to receive congratulations; this was all a part of the early mores designed to establish the father's right to the child.

84:2.5 (933.3) At first, it was the custom for the man to go to his wife's people, but in later times, after a man had paid or worked out the bride price, he could take his wife and children back to his own people. The transition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explains the otherwise meaningless prohibitions of some types of cousin marriages while others of equal kinship are approved.

84:2.6 (933.4) With the passing of the hunter mores, when herding gave man control of the chief food supply, the mother-family came to a speedy end. It failed simply because it could not successfully compete with the newer father-family. Power lodged with the male relatives of the mother could not compete with power concentrated in the husband-father. Woman was not equal to the combined tasks of childbearing and of exercising continuous authority and increasing domestic power. The oncoming of wife stealing and later wife purchase hastened the passing of the mother-family.

84:2.7 (933.5) The stupendous change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is one of the most radical and complete right-about-face adjustments ever executed by the human race. This change led at once to greater social expression and increased family adventure.

3.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가족

3. THE FAMILY UNDER FATHER DOMINANCE

모성 본능이 여자를 결혼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은, 사회관행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세한 힘이었다. 목축 생활은, 새로운 사회관행 체계, 즉 가부장적(家父長的) 유형의 가족 생활이 이뤄지도록 이바지했으며; 목축업과 초기 농업의 사회관행 하에서 이뤄진 가족 통일의 기초는, 명백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의 권위였다. 국가적인 것이든지 가족적인 것이든지, 모든 사회는 가부장적 체제라는 독재 권위 단계를 거쳤다.

구약 시대 동안 여자를 거의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사회관행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히브리** 족장(族長)들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목축업자였다.

그러나 지난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낮게 취급한 것은,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 자신 때문이었다.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에 사회적 명성을 얻지 못했으며; 극적인 영웅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이 되지 못했다. 생존 투쟁에서, 임신 기간은 뚜렷이 불리한 조건이었으며; 모성에는, 부족을 방어할 때 여자에게 장애물이 됐다.

또한 원시 여자들은, 남자의 호전성(好戰性)과 정력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됐다. 전사(戰士)들에 대한 이런 찬미는 남성의 자존심을 높여준 반면, 여자의 자존심은 그만큼 억눌렸고, 여자가 더 중속되도록 만들었으며; 군인의 제복은 여성의 감정을 여전히 크게 흥분시키고 있다.

더 진보된 인종들 가운데서, 여자는 남자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여자는,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더 약삭빠르게 됐으며;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익혔다. 여자는 남자보다 생각이 약간 덜 깊지만, 더 기민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됐다. 전쟁터와 사냥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남자라도 여자가 대개 술책으로 이길 수 있었다.

목축하는 남자들은 먹을거리를 자기 가축 떼에서 찾았지만, 이런 전원 시대 내내, 여자는 여전히 먹을 채소를 마련해야만 했다. 원시 시대의 남자는 흙을 멀리했는데; 그것은 모두 너무 평화롭고 모험하는 재미가 너무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여자가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오래된 미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퇴보한 많은 부족 사이에서는, 남자가 고기를 요리하고, 여자는 채소를 요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랄리아**의 원시 부족들이 행진할 때, 여자는 결코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으며, 한편 남자는 뿌리 하나라도 뽑으려고 몸을 굽히지 않는다.

84:3.1 (933.6) It may be that the instinct of motherhood led woman into marriage, but it was man's superior strength, together with the influence of the mores, that virtually compelled her to remain in wedlock. Pastoral living tended to create a new system of mores, the patriarchal type of family life; and the basis of family unity under the herder and early agricultural mores was the unquestioned and arbitrary authority of the father. All society, whether national or familial, passed through the stage of the autocratic authority of a patriarchal order.

84:3.2 (934.1) The scant courtesy paid womankind during the Old Testament era is a true reflection of the mores of the herdsmen. The Hebrew patriarchs were all herdsmen, as is witnessed by the saying, “The Lord is my Shepherd.”

84:3.3 (934.2) But man was no more to blame for his low opinion of woman during past ages than was woman herself. She failed to get social recognition during primitive times because she did not function in an emergency; she was not a spectacular or crisis hero. Maternity was a distinct disability in the existence struggle; mother love handicapped women in the tribal defense.

84:3.4 (934.3) Primitive women also unintentionally created their dependence on the male by their admiration and applause for his pugnacity and virility. This exaltation of the warrior elevated the male ego while it equally depressed that of the female and made her more dependent; a military uniform still mightily stirs the feminine emotions.

84:3.5 (934.4) Among the more advanced races, women are not so large or so strong as men. Woman, being the weaker, therefore became the more tactful; she early learned to trade upon her sex charms. She became more alert and conservative than man, though slightly less profound. Man was woman's superior on the battlefield and in the hunt; but at home woman has usually outgeneraled even the most primitive of men.

84:3.6 (934.5) The herdsman looked to his flocks for sustenance, but throughout these pastoral ages woman must still provide the vegetable food. Primitive man shunned the soil; it was altogether too peaceful, too unadventurous. There was also an old superstition that women could raise better plants; they were mothers. In many backward tribes today, the men cook the meat, the women the vegetables, and when the primitive tribes of Australia are on the march, the women never attack game, while a man would not stoop to dig a root.

여자는 항상 일을 해야만 했는데;적어도 현대 시대까지, 여자들은 실제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남자는 대개 비교적 쉬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이런 불평등은 인간 종족의 전체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다. 여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가족의 재산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가 일에 매이지 않고 싸우거나 사냥할 수 있게 했다.

여자가 처음으로 해방된 것은, 남자가 땅을 경작하기로 동의했을 때, 즉 당시까지는 여자의 일로 간주돼 왔던 것을 하겠다고 동의했을 때 도래했다. 남자 포로를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 대신 농사짓는 노예로 삼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것이 여자를 해방시켜서 가사{家事}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더 일찍 유아에게서 젖을 떼 수 있게 됐으며, 따라서 어머니는 때때로 임시적인 불임기간에 편히 쉴으로써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동시에,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목축하는 사회 단계 이전에는, 아이가 네 살 또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곤 했다.

원시 시대의 전쟁이 크게 줄어들자, 성에 따라 구분된 노동 사이의 불균형이 감소됐다. 그러나 남자가 보초를 서는 동안, 여자는 여전히 실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야영지 또는 마을은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세워야만 했지만, 이런 과제도 개를 길들임으로써 완화됐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이 이뤄짐으로써 여자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는데;적어도 이런 사실은 바로 남자가 농사꾼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랬다. 그리고 남자가 땅을 경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즉시 농업 방식이 곧 크게 개선됐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뤄졌다. 남자는 전쟁과 사냥을 통해서 조직이 귀중함을 배웠고, 이런 기법을 산업에 적용했으며, 그 후에 여자의 일을 많이 떠맡게 됐을 때에는, 그동안 허술했던 노동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

4. 초기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시대든지 여자의 지위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결혼이 얼마나 진화해서 진보했는지를 재는 공정한 척도이며, 한편 결혼 자체의 진보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가리키는, 상당히 정확한 계량기다.

여자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의 모순이었으며; 여자는 항상 남자를 약삭빠르게 조종해 왔으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남자의 왕성한 성욕을 이용해 왔다.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미묘하게 거래함으로써, 남자를 지배하는 능력을 종종 발휘해 왔는데, 심

84:3.7 (934.6) Woman has always had to work; at least right up to modern times the female has been a real producer. Man has usually chosen the easier path, and this inequality has existed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the human race. Woman has always been the burden bearer, carrying the family property and tending the children, thus leaving the man's hands free for fighting or hunting.

84:3.8 (934.7) Woman's first liberation came when man consented to till the soil, consented to do what had theretofore been regarded as woman's work. It was a great step forward when male captives were no longer killed but were enslaved as agriculturists. This brought about the liberation of woman so that she could devote more time to homemaking and child culture.

84:3.9 (934.8) The provision of milk for the young led to earlier weaning of babies, hence to the bearing of more children by the mothers thus relieved of their sometimes temporary barrenness, while the use of cow's milk and goat's milk greatly reduced infant mortality. Before the herding stage of society, mothers used to nurse their babies until they were four and five years old.

84:3.10 (934.9) Decreasing primitive warfare greatly lessened the disparity between the division of labor based on sex. But women still had to do the real work while men did picket duty. No camp or village could be left unguarded day or night, but even this task was alleviated by the domestication of the dog. In general, the coming of agriculture has enhanced woman's prestige and social standing; at least this was true up to the time man himself turned agriculturist. And as soon as man addressed himself to the tilling of the soil, there immediately ensued great improvement in methods of agriculture, extending on down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In hunting and war man had learned the value of organization, and he introduced these techniques into industry and later, when taking over much of woman's work, greatly improved on her loose methods of labor.

4. WOMAN'S STATUS IN EARLY SOCIETY

84:4.1 (935.1) Generally speaking, during any age woman's status is a fair criterion of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marriage as a social institution, while the progress of marriage itself is a reasonably accurate gauge registering the advances of human civilization.

84:4.2 (935.2) Woman's status has always been a social paradox; she has always been a shrewd manager of men; she has always capitalized man's stronger sex urge for her own interests and to her own advancement. By trading subtly upon her sex charms, she has often been able to

지어 남자에게 비천한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에도 그랬다.

일찍이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 연인, 또는 동업자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의 일부, 즉 종 또는 노예였고, 나중에는 경제적 동업자, 노리게, 그리고 아이 낳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런 성관계에는 반드시 여자가 선택하고 협동하는 요소가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총명한 여자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속박된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줄곧 약삭빠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의 불신과 의심은 완화되지 못했다.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녀를 의심과 경멸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지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에 홀린 상태가 야릇하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바라봤다. 부족과 종족의 여러 전통은, 재난을 **이브**,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여성 대표자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왜곡돼서, 여자가 남자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은 여자를 한때 보편적으로 불신했음을 가리킨다. 사회계층이 독신주의를 지지하면서 늘어놓은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가 천하다는 것이었다. 무당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 평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를 기묘한 존재로, 심지어 비정상 존재로 간주했다. 그들은 여자에게 혼이 없다고 믿기까지 했으며;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먼 옛날에는 여자와 처음 성관계 맺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으며; 그리하여 처녀로 하여금 사제와 첫 성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심지어 여자의 그림자가 위험스런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해산(解産)이 여자를 위험스럽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한때 일반적으로 퍼졌다. 그리고 여러 부족의 사회관행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상당한 기간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해산하는 현장에 남편이 참여케 하는 집단들 이외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된 여자를 회피했고 따로 혼자 있게 했다. 고대인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 해산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런 관습에 따라서 전문 산파술(產婆術)이 기원됐다. 분만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산하는 동안에 몇 십 가지 미련스런 일들을 말하고 행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령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수(聖水)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부족들 가운데서는, 해산이 비교적 수월해서, 두 세 시간이면 충분했으며; 피가 섞인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드물었다. 어떤 여자가 출산 중에 죽으면, 특히 쌍

exercise dominant power over man, even when held by him in abject slavery.

84:4.3 (935.3) Early woman was not to man a friend, sweetheart, lover, and partner but rather a piece of property, a servant or slave and, later on, an economic partner, plaything, and childbearer. Nonetheless, proper and satisfactory sex relations have always involved the element of choice and co-operation by woman, and this has always given intelligent women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ir immediate and personal standing,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sition as a sex. But man's distrust and suspicion were not helped by the fact that women were all along compelled to resort to shrewdness in the effort to alleviate their bondage.

84:4.4 (935.4) The sexes have had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each other. Man found it hard to understand woman, regarding her with a strange mixture of ignorant mistrust and fearful fascination, if not with suspicion and contempt. Many tribal and racial traditions relegate trouble to Eve, Pandora, or some other representative of womankind. These narratives were always distorted so as to make it appear that the woman brought evil upon man; and all this indicates the onetime universal distrust of woman. Among the reasons cited in support of a celibate priesthood, the chief was the baseness of woman. The fact that most supposed witches were women did not improve the olden reputation of the sex.

84:4.5 (935.5) Men have long regarded women as peculiar, even abnormal. They have even believed that women did not have souls; therefore were they denied names. During early times there existed great fear of the first sex relation with a woman; hence it became the custom for a priest to have initial intercourse with a virgin. Even a woman's shadow was thought to be dangerous.

84:4.6 (935.6) Childbearing was once generally looked upon as rendering a woman dangerous and unclean. And many tribal mores decreed that a mother must undergo extensive purification ceremonies subsequent to the birth of a child. Except among those groups where the husband participated in the lying-in, the expectant mother was shunned, left alone. The ancients even avoided having a child born in the house. Finally, the old women were permitted to attend the mother during labor, and this practice gave origin to the profession of midwifery. During labor, scores of foolish things were said and done in an effort to facilitate delivery. It was the custom to sprinkle the newborn with holy water to prevent ghost interference.

84:4.7 (935.7) Among the unmixed tribes, childbirth was comparatively easy, occupying only two or three hours; it is seldom so easy among the mixed races. If a woman died in childbirth, especially during the delivery of twins, she was believed to

둥이를 낳다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영적 간음죄를 범했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비교적 발달된 부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를 하늘의 뜻으로 간주했고;그런 산모는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됐다.

신체 노출과 의복에 관계되는, 소위 여자의 정숙함은, 월경 기간에 사람들에게 관측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에서 연유됐다.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중대한 죄, 즉 금기 위반이었다. 옛 사회관행 하에서는, 사춘기로부터 출산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나이까지의 모든 여자는, 매 달 1주일씩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어야 했다. 그녀가 만지거나 앉거나 누웠던 모든 것을, “부정{不淨}”한 것으로 여겼다. 매 달 그 기간이 끝난 소년은, 그 몸에서 악령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여자의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더 많은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가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그리스인**도 월경{月經} 기간의 여자를 세 가지 큰 오염원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는데, 다른 두 가지는 돼지와 마늘이었다.

아무리 어리석었을지라도, 이런 고대의 생각들은, 과중한 일을 부과했던 여자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했는데, 적어도 나이 어렸을 때에는 매 달 1주일씩 휴식을 즐기면서 유익한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휴식 시간에 자신의 남자 동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예리한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여자의 이런 격리 기간은, 남자로 하여금 과도한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게 했고, 그리하여 인구 증가의 억제와 자아_통제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게 됐을 때 큰 진보가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예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됐을 때 한 단계 더 진보했다. 나중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획득했지만, 교회 또는 관청에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는 기원후 20세기 이전은 물론 20세기에, 어느 정도는 항상 재산으로 취급돼 왔다. 여자는, 남자의 통제 아래 차단된 상태로부터 세계적인 해방을, 아직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된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남자가 탁월함을 말없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여자는, 아주 최근에 해방된 자매들이 곧잘 하듯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했으며;더 낫거나 전혀 다른 실존 방식을 감히 상상하지도 않았다.

have been guilty of spirit adultery. Later on, the higher tribes looked upon death in childbirth as the will of heaven; such mothers were regarded as having perished in a noble cause.

84:4.8 (936.1) The so-called modesty of women respecting their clothing and the exposure of the person grew out of the deadly fear of being observed at the time of a menstrual period. To be thus detected was a grievous sin, the violation of a taboo. Under the mores of olden times, every woman, from adolescence to the end of the childbearing period, was subjected to complete family and social quarantine one full week each month. Everything she might touch, sit upon, or lie upon was “defiled.” It was for long the custom to brutally beat a girl after each monthly period in an effort to drive the evil spirit out of her body. But when a woman passed beyond the childbearing age, she was usually treated more considerately, being accorded more rights and privileges. In view of all this it was not strange that women were looked down upon. Even the Greeks held the menstruating woman as one of the three great causes of defilement, the other two being pork and garlic.

84:4.9 (936.2) However foolish these olden notions were, they did some good since they gave overworked females, at least when young, one week each month for welcome rest and profitable meditation. Thus could they sharpen their wits for dealing with their male associates the rest of the time. This quarantine of women also protected men from over-sex indulgence, thereby indirectly contributing to the restriction of population and to the enhancement of self-control.

84:4.10 (936.3) A great advance was made when a man was denied the right to kill his wife at will. Likewise, it was a forward step when a woman could own the wedding gifts. Later, she gained the legal right to own, control, and even dispose of property, but she was long deprived of the right to hold office in either church or state. Woman has always been treated more or less as property, right up to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She has not yet gained world-wide freedom from seclusion under man's control. Even among advanced peoples, man's attempt to protect woman has always been a tacit assertion of superiority.

84:4.11 (936.4) But primitive women did not pity themselves as their more recently liberated sisters are wont to do. They were, after all, fairly happy and contented; they did not dare to envision a better or different mode of existence.

5.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의 여자

5. WOMAN UNDER THE DEVELOPING MORES

자아를 존속시키는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 면에서는, 여자가 분명히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이런 모성의 불리한 장애는, 진보되는 문명의 계몽된 사회관행으로, 그리고 공평성에 대한 감각을 남자가 점점 더 획득함으로써 보정(補正)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성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 여자들 가운데서 더 높게 일어났는데, 이는 성(性)에 대한 사회관행을 위반한 결과에서 그들이 더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자의 성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공정성을 미약하게 의식한 결과로, 오직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은 공정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곧 아이 낳는 고통을 여자 혼자 겪게 만든다.

현대의 남녀평등 관념은 아름답고, 확장하는 문명에 어울리지만, 자연 법칙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평성이 더 우세해진 후에는, 여자가 노예 신분과 미천한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시대든지, 대개 군국주의의 정도에 반비례로 변화된다.

그러나 남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여자의 권리를 빼앗지는 않았고, 그 후에는 점차 마지 못해서 권리를 여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사회의 진화에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사건이었다. 늘어난 권리를 실제로 누리게 됐을 때, 여자는 권리를 가졌고, 남자가 자각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가졌다. 그런 사회적 조정은 문명의 끊임없는 진화의 일부분이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관행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더 나은 대우를 서서히 점점 더 여자에게 제공했으며; 여자에게 계속 잔인한 부족은 살아남지 못했다.

아담족속과 노트족속은 여자를 더 많이 인정했고, 이주하는 **안드족속**에게 영향을 받은 집단들은,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에 관한 **에덴**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시대의 **중국인**과 **그리스인**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낮게 여자를 대우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지나치게 여자를 의심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침부된 **바울**의 교리 아래서, 여자의 지위 향상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는 더 엄격한 성직 책무를 남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회관행을 발전시켰다. 여자의 생활 상태는, **마호메트교**에서 여자에게 부여한 색다른 퇴보 아래서 거의 절망 상태에 있으며, 여자는 다른 몇몇 **동양** 종교의 가르침 아래서 훨씬 악화된 상태로 살고 있다.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과학이 여자를 해방시켰으며; 가정에 감금된 여자를 크게 풀어준 것은 현대의 공장(工場)이었다. 남자의 육체적 기량은,

84:5.1 (936.5) In self-perpetuation woman is man's equal, but in the partnership of self-maintenance she labors at a decided disadvantage, and this handicap of enforced maternity can only be compensated by the enlightened mores of advancing civilization and by man's increasing sense of acquired fairness.

84:5.2 (936.6) As society evolved, the sex standards rose higher among women because they suffered more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transgression of the sex mores. Man's sex standards are only tardily improving as a result of the sheer sense of that fairness which civilization demands. Nature knows nothing of fairness — makes woman alone suffer the pangs of childbirth.

84:5.3 (936.7) The modern idea of sex equality is beautiful and worthy of an expanding civilization, but it is not found in nature. When might is right, man lords it over woman; when more justice, peace, and fairness prevail, she gradually emerges from slavery and obscurity. Woman's social position has generally varied inversely with the degree of militarism in any nation or age.

84:5.4 (937.1) But man did not consciously nor intentionally seize woman's rights and then gradually and grudgingly give them back to her; all this was an unconscious and unplanned episode of social evolution. When the time really came for woman to enjoy added rights, she got them, and all quite regardless of man's conscious attitude. Slowly but surely the mores change so as to provide for those social adjustments which are a part of the persistent evolution of civilization. The advancing mores slowly provided increasingly better treatment for females; those tribes which persisted in cruelty to them did not survive.

84:5.5 (937.1) The Adamites and Nodites accorded women increased recognition, and those group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migrating Andites have tended to be influenced by the Edenic teachings regarding women's place in society.

84:5.6 (937.1) The early Chinese and the Greeks treated women better than did most surrounding peoples. But the Hebrews were exceedingly distrustful of them. In the Occident woman has had a difficult climb under the Pauline doctrines which became attached to Christianity, although Christianity did advance the mores by imposing more stringent sex obligations upon man. Woman's estate is little short of hopeless under the peculiar degradation which attaches to her in Mohammedanism, and she fares even worse under the teachings of several other Oriental religions.

84:5.7 (937.1) Science, not religion, really emancipated woman; it was the modern factory which largely set her free from the confines of the

새 생활 체제에서는 더 이상 극히 중대한 근본 요소가 아니며; 과학이 생활환경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은 여자의 능력을 더 이상 크게 능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변화는 집안의 노예 신세로부터 여자를 해방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남자와 동등한 정도의 개인 자유와 성적 결정권을 현재 누리고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변경되게 됐다. 한때는 여자의 가치가 음식을 만드는 역량에 제한됐지만, 발명과 풍요함으로 인해 여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곧 우아하고 매력 있는 영역을--창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산업은, 여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해방을 위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왔다. 그리고 계시조차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까지 진화가 다시 이룩해 왔다.

공동체에서 여자의 처지를 규제하는 불공정한 사회관행에서 벗어난 계몽된 사람들의 반응은, 그 과격성에서 정말로 격변을 일으켜 왔다. 산업화된 인종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거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됐고, 군대 복무 같은 많은 책무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린다. 실존을 위한 투쟁이 완화될 때마다 여자의 해방에 도움이 됐고, 일부일처제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자는 직접 혜택을 입었다. 공동체가 진취적으로 진화하면서 사회관행이 조정될 때마다, 약자는 항상 공평함 이상으로 이익을 얻는다.

부부의 결혼이라는 이상{理想}에서, 여자는 마침내, 인정(認定), 존엄성, 독립성, 동등권, 및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지만; 여자가 새롭고 전례 없는 이런 모든 성취를 누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과연 증명하게 될 것인가? 사회의 해방이라는 엄청난 성취에 대해, 현대의 여자들, 나태함, 무관심, 불임(不妊), 및 간통(姦通)으로 반응할 것인가? 20세기인 오늘날, 여자는 오랫동안 세상에 현존한 것에 대한 중대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종족 번식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이고, 따라서 종족의 진화가 전개되는 데 똑같이 중요하며; 그러므로 진화는 여자의 권리를 점점 더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여자의 권리는 남자의 권리와 결코 똑같지 않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없다.

남녀는 각자 특유의 실존 영역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갖는다. 여자가 문자 그대로 남자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현재 많은 여자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최근에 남자로부터 획득한, 기사도(騎士道) 정신과 특별한 존중심을, 냉혹하고 삭막한 경쟁이 곧 분명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문명은 남녀 사이에 있는 습성의 큰 차이를

home. Man's physical abilities became no longer a vital essential in the new maintenance mechanism; science so changed the conditions of living that man power was no longer so superior to woman power.

84:5.8 (937.1) These changes have tended toward woman's liberation from domestic slavery and have brought about such a modification of her status that she now enjoys a degree of personal liberty and sex determination that practically equals man's. Once a woman's value consisted in her food-producing ability, but invention and wealth have enabled her to create a new world in which to function — spheres of grace and charm. Thus has industry won its unconscious and unintended fight for woman's social and economic emancipation. And again has evolution succeeded in doing what even revelation failed to accomplish.

84:5.9 (937.1) The reaction of enlightened peoples from the inequitable mores governing woman's place in society has indeed been pendulumlike in its extremeness. Among industrialized races she has received almost all rights and enjoys exemption from many obligations, such as military service. Every easement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has redounded to the liberation of woman, and she has directly benefited from every advance toward monogamy. The weaker always makes disproportionate gains in every adjustment of the mores in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society.

84:5.10 (937.1) In the ideals of pair marriage, woman has finally won recognition, dignity, independence, equality, and education; but will she prove worthy of all this new and unprecedented accomplishment? Will modern woman respond to this great achievement of social liberation with idleness, indifference, barrenness, and infidelity? Today, in the twentieth century, woman is undergoing the crucial test of her long world existence!

84:5.11 (938.1) Woman is man's equal partner in race reproduction, hence just as important in the unfolding of racial evolution; therefore has evolution increasingly worked toward the realization of women's rights. But women's rights are by no means men's rights. Woman cannot thrive on man's rights any more than man can prosper on woman's rights.

84:5.12 (938.2) Each sex has its own distinctive sphere of existence, together with its own rights within that sphere. If woman aspires literally to enjoy all of man's rights, then, sooner or later, pitiless and emotionless competition will certainly replace that chivalry and special consideration which many women now enjoy, and which they have so recently won from men.

84:5.13 (938.3) Civilization never can obliterate the

결코 없앨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관행은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산업 사회에서 남자의 심각한 경쟁상대가 될 만큼 여자가 해방되는 일은, 타고난 모성에 때문에 결코 불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 자기만의 영역에서 최고의 상태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는 생물학적 차이와 정신적 차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남녀는 각자 항상 자기만의 특별한 영역을 가질 것인데, 그것은 때때로 서로 중첩되기도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오직 사회에서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6. 남자와 여자의 협력

번식하려는 충동이, 자아_영속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모이도록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함께 계속 상호 협동하도록--곧 가정(家庭)을 설립하도록--보장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인간 제도마다,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돼 온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는 것을 용납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인데, 상반되는 협동을 최고로 형태화한 것이며, 이것은 매우 자주 자연과 공동체 접촉의 특징이 된다. 갈등은 필연적이다. 짝짓기는 선천적이며;자연스런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학상의 일이 아니며;사회적인 일이다. 열정은 남녀가 함께 하도록 보장하지만, 그보다 약한 부모로서의 본능과 사회관행이, 그들의 동반 관계를 유지시킨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밀접하고 긴밀한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종자의 두 가지 뚜렷한 변종이다. 그들의 관점과 전체 생애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다르며;그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실제로 납득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성간의 완전한 이해는 이뤄질 수 없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논리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자는 항상 도덕의 주창자(主唱者)였고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숙명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본성, 반응, 관점, 및 생각의 차이는, 걱정을 야기 시키기는커녕,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간주돼야만 할 것이다. 많은 계층의 우주 피조물은, 이중(二重) 국면으로 인간성을 형태화하도록 창조된다. 필사자와 물질 아들 그리고 중간유한절대자 가운데서는, 이런 차이가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며;스라빔과 체루빔, 그리고 모론시아 동료 가운데서는, 양성(陽性), 즉 적극적 존재와, 음성(陰性),

behavior gulf between the sexes. From age to age the mores change, but instinct never. Innate maternal affection will never permit emancipated woman to become man's serious rival in industry. Forever each sex will remain supreme in its own domain, domains determined by biologic differentiation and by mental dissimilarity.

84:5.14 (938.4) Each sex will always have its own special sphere, albeit they will ever and anon overlap. Only socially will men and women compete on equal terms.

6. THE PARTNERSHIP OF MAN AND WOMAN

84:6.1 (938.5) The reproductive urge unfailingly brings men and women together for self-perpetuation but, alone, does not insure their remaining together in mutual co-operation — the founding of a home.

84:6.2 (938.6) Every successful human institution embraces antagonisms of personal interest which have been adjusted to practical working harmony, and homemaking is no exception. Marriage, the basis of home building, is the highest manifestation of that antagonistic co-operation which so often characterizes the contacts of nature and society. The conflict is inevitable. Mating is inherent; it is natural. But marriage is not biologic; it is sociologic. Passion insures that man and woman will come together, but the weaker parental instinct and the social mores hold them together.

84:6.3 (938.7) Male and female are, practically regarded, two distinct varieties of the same species living in close and intimate association. Their viewpoints and entire life reactions are essentially different; they are wholly incapable of full and real comprehension of each other. Complete understanding between the sexes is not attainable.

84:6.4 (938.8) Women seem to have more intuition than men, but they also appear to be somewhat less logical. Woman, however, has always been the moral standard-bearer and the spiritual leader of mankind.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still fraternizes with destiny.

84:6.5 (938.9) The differences of nature, reaction, viewpoint, and thinking between men and women, far from occasioning concern, should be regarded as highly beneficial to mankind,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Many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are created in dual phases of personality manifestation. Among mortals, Material Sons, and midsoniters, this difference is described as male and female; among seraphim, cherubim, and Morontia Companions, it has been denominated

즉 내향적 존재로 언급돼 왔다. **낙원_하보나** 체계에서 어떤 삼중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런 이중 연합은 융통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선천적 제한조건을 극복한다.

남자와 여자는 필사자 생애뿐 아니라, 모른시아 생애 및 영적 생애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점 차이는, 첫 번째 생애 이후, 그리고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과정 내내 지속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서도, 한때 남자와 여자였던 순례자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로 돕게 될 것이다. 심지어 **완결성취 단체**에서도, 피조물은 결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인격적 경향을 지워버릴 만큼 변환되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이런 두 가지 근본 변종(變種)은, 서로에게 호기심과 자극과 용기를 주고 협조하는 일을 항상 계속할 것이며; 그들은 복잡한 우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리고 시공우주의 각양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언제나 서로 협동하면서 의존할 것이다.

남녀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기를 희망할 수는 결코 없지만, 서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다소 대립된다 할지라도, 협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결혼은 성적 차이점을 완화시키도록 고안된 제도인 동시에, 문명이 지속되게 하고 종족의 번식을 보장한다.

결혼은 모든 인간 제도의 근원인데, 그것이 가정의 설립과 유지를 직접 이룩하기 때문이며, 가정은 사회의 구조적 기초다. 가족은 자아를 유지하는 체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문명의 사회관행 아래서 종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특정한 아주 만족스런 형태의 자아 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가족은 사람이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업적인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를, 실제로 합병한다.

7. 가족생활의 이상

남녀가 짝짓는 것은 본능이고, 자녀는 자연스런 결과이며, 그리하여 가족이 자동으로 존재하게 된다. 종족 또는 나라의 가족들이 어떠하듯이, 그 사회도 그렇다. 가족이 선하다면,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 선하다. **유대** 민족과 **중국**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적 안정성은, 그들의 가족 집단의 힘에서 나온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이, 그녀로 하여금 결혼과 원시 가족생활을 증진시키기에 흥미를 갖는 집단이 되도록 도모했다. 남자는 후대의 사회관행과 사회적 인습으로 인해 강제로 가

positive or aggressive and negative or retiring. Such dual associations greatly multiply versatility and overcome inherent limitations, even as do certain triune associations in the Paradise-Havona system.

84:6.6 (939.1) Men and women need each other in their morontial and spiritual as well as in their mortal careers. The differences in viewpoint between male and female persist even beyond the first life and throughout the local and superuniverse ascensions. And even in Havona, the pilgrims who were once men and women will still be aiding each other in the Paradise ascent. Never, even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will the creature metamorphose so far as to obliterate the personality trends that humans call male and female; always will these two basic variations of humankind continue to intrigue, stimulate, encourage, and assist each other; always will they be mutually dependent on co-operation in the solution of perplexing universe problems and in the overcoming of manifold cosmic difficulties.

84:6.7 (939.2) While the sexes never can hope fully to understand each other, they are effectively complementary, and though co-operation is often more or less personally antagonistic, it is capable of maintaining and reproducing society. Marriage is an institution designed to compose sex differences, meanwhile effecting the continuation of civilization and insuring the reproduction of the race.

84:6.8 (939.3) Marriage is the mother of all human institutions, for it leads directly to home founding and home maintenance, which is the structural basis of society. The family is vitally linked to the mechanism of self-maintenance; it is the sole hope of race perpetuation under the mores of civilization, while at the same time it most effectively provides certain highly satisfactory forms of self-gratification. The family is man's greatest purely human achievement, combining as it does the evolution of the biologic relations of male and female with the social relations of husband and wife.

7. THE IDEALS OF FAMILY LIFE

84:7.1 (939.4) Sex mating is instinctive, children are the natural result, and the family thus automatically comes into existence. As are the families of the race or nation, so is its society. If the families are good, the society is likewise good. The great cultural stability of the Jewish and of the Chinese peoples lies in the strength of their family groups.

84:7.2 (939.5) Woman's instinct to love and care for children conspired to make her the interested party in promoting marriage and primitive family life. Man was only forced into home building by the pressure

정을 이루게 됐을 뿐이며; 남자가 결혼과 가정을 설립하기에 흥미를 갖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는 성행위가 어떤 생물학적 영향도 그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의 결합은 자연스런 것이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며, 언제나 사회관행에 규제를 받아왔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관행은, 재산, 자존심, 및 기사도 정신과 함께,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안정시킨다. 사회관행이 동요될 때마다, 가정_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결혼은 이제 소유{所有} 단계를 탈피해서 개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했으며,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복종했다. 그 장점은 상관없이, 이런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했다. 이제, 여자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혼_가정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사회관행이 출현하고 있다:

1. 종교의 새로운 역할 --부모의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가르침, 시공우주 시민을 낳는다는 관념, 즉 출산{出産}이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특권임을 더욱 이해하는 것.

2. 과학의 새로운 역할 --출산은 점점 더 계획적인 것이 됐는데, 사람의 통제를 따르게 됐음. 옛날에는 이해 부족 때문에 그것을 위한 모든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의 출생이 보장됐다.

3. 쾌락을 주는 매력의 새로운 역할 --이것이 종족의 생존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했으며; 옛 사람은 원치 않는 아이를 죽였지만; 현대인은 그런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4. 부모로서의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부모로서의 본능이 충분치 못해서, 다음 세대에 부모가 될 자녀의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족의 번식 흐름에서 제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가정,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체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약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안돈**과 그의 직계 후손이 가졌던 일부일처제 관습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아무튼, 가족생활은 **노족속**과 그 후의 **아담족속** 시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하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가 **동산**에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온 가족이 채소 가꾸는 자가 되는 **에덴**의 이상은, **유란시아**에서 새로운 관념이었다.

초기의 가족은, 함께 일하는 집단, 즉 노예를 포함해서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결혼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관련될 필요가 있었다. 여자는 항상 독립

of the later mores and social conventions; he was slow to take an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home because the sex act imposes no biologic consequences upon him.

84:7.3 (939.6) Sex association is natural, but marriage is social and has always been regulated by the mores. The mores (religious, moral, and ethical), together with property, pride, and chivalry, stabilize the institutions of marriage and family. Whenever the mores fluctuate, there is fluctuation in the stability of the home-marriage institution. Marriage is now passing out of the property stage into the personal era. Formerly man protected woman because she was his chattel, and she obeyed for the same reason. Regardless of its merits this system did provide stability. Now, woman is no longer regarded as property, and new mores are emerging designed to stabilize the marriage-home institution:

84:7.4 (939.7) 1. The new role of religion — the teaching that parental experience is essential, the idea of procreating cosmic citizens, the enlarged understanding of the privilege of procreation — giving sons to the Father.

84:7.5 (940.1) 2. The new role of science — procre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voluntary, subject to man's control. In ancient times lack of understanding insured the appearance of children in the absence of all desire therefor.

84:7.6 (940.2) 3. The new function of pleasure lures — this introduces a new factor into racial survival; ancient man exposed undesired children to die; moderns refuse to bear them.

84:7.7 (940.3) 4. The enhancement of parental instinct — each generation now tends to eliminate from the reproductive stream of the race those individuals in whom parental instinct is insufficiently strong to insure the procreation of children, the prospective parents of the next generation.

84:7.8 (940.4) But the home as an institution, a partnership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dates more specifically from the days of Dalamatia,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e monogamous practices of Andon and his immediate descendants having been abandoned long before. Family life, however, was not much to boast of before the days of the Nodites and the later Adamites. Adam and Eve exerted a lasting influence on all manki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men and women were observed working side by side in the Garden. The Edenic ideal, the whole family as gardeners, was a new idea on Urantia.

84:7.9 (940.5) The early family embraced a related working group, including the slaves, all living in one dwelling. Marriage and family life have not always been identical but have of necessity been closely

적인 가족을 원했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손에 대한 사랑은 거의 보편적이고, 명백하게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옛 사람은 언제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의 권리를 희생시켰으며, **에스키모**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이를 물로 씻는 대신 혀로 핥아준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어머니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만 먹여주고 돌봤을 뿐이며; 동물처럼, 그들이 자라자마자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인간 연합체는 생물학적 애정만을 기초하여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며; 사람은--곧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녀도 사랑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녀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쁨이 커지며; 따라서 **가문**{家門}의 자궁심에 대하여 새롭고 더 고상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고대의 민족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가족이 반드시 환영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바람직했다:

1. 자녀는 일꾼으로서 가치 있었다.
2. 자녀는 노후대책이었다.
3. 딸을 팔 수 있었다.
4. 가족의 자궁심이 가문의 확장을 요구했다.

5. 아들은 보호하는 일과 방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6.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다.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바치게 했다.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영원한 불행으로 여긴다. 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고, 유령이 영 나라를 통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제물을 바칠 아들을 무엇보다도 더 바란다.

옛날의 미개인 가운데서는 자녀에게 별주는 것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됐으며;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순종이 실패 또는 심지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어리석은 행실에 대한 자연스런 대가{代價}를 치르지 않도록 문명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이, 현대의 반항적 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에스키모 아이들은 훈련과 벌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들이 선천적으로 유순한 어린 동물과 같기 때문이며; 홍색인과 황색인 자녀도 거의 똑같이 유순하다. 그러나 **안드족속** 유전자를 가진 종족들 가운데에서는, 아이들이 그다지 차분하지 않으며; 상상력이 더 풍부하고 모험심이 강한 이 아이들은 더 많은 훈련과 억제가 필요하다. 아이를 훈육하는 현대 문제는 다음 이유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1. 상당한 정도로 종족이 혼합됨.

associated. Woman always wanted the individual family, and eventually she had her way.

84:7.10 (940.6) Love of offspring is almost universal and is of distinct survival value. The ancients always sacrificed the mother's interests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an Eskimo mother even yet licks her baby in lieu of washing. But primitive mothers only nourished and cared for their children when very young; like the animals, they discarded them as soon as they grew up. Enduring and continuous human associations have never been founded on biologic affection alone. The animals love their children; man — civilized man — loves his children's children. The higher the civilization, the greater the joy of parents in the children's advancement and success; thus the new and higher realization of *name* pride comes into existence.

84:7.11 (940.7) The large families among ancient peoples were not necessarily affectional. Many children were desired because:

84:7.12 (940.8) 1. They were valuable as laborers.

84:7.13 (940.9) 2. They were old-age insurance.

84:7.14 (940.10) 3. Daughters were salable.

84:7.15 (940.11) 4. Family pride required extension of name.

84:7.16 (940.12) 5. Sons afforded protection and defense.

84:7.17 (940.13) 6. Ghost fear produced a dread of being alone.

84:7.18 (940.14) 7. Certain religions required offspring.

84:7.19 (940.15) Ancestor worshipers view the failure to have sons as the supreme calamity for all time and eternity. They desire above all else to have sons to officiate in the post-mortem feasts, to offer the required sacrifices for the ghost's progress through spiritland.

84:7.20 (941.1) Among ancient savages, discipline of children was begun very early; and the child early realized that disobedience meant failure or even death just as it did to the animals. It is civilization's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the natural consequences of foolish conduct that contributes so much to modern insubordination.

84:7.21 (941.2) Eskimo children thrive on so little discipline and correction simply because they are naturally docile little animals; the children of both the red and the yellow men are almost equally tractable. But in races containing Andite inheritance, children are not so placid; these more imaginative and adventurous youths require more training and discipline. Modern problems of child culture are rendered increasingly difficult by:

84:7.22 (941.3) 1. The large degree of race mixture.

2.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교육.

3. 자녀가 부모를 모방함으로써 문화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함--부모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가족을 징계하는 옛 관념은 생물학적이었는데, 부모가 자녀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라는 깨달음에서 형성됐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기보다 오히려 인간 실존에서 최고의 책임을 수반한다고 생각하도록, 가족생활에 관한 진보하는 이상{理想}이 이끌고 있다.

문명은 모든 의무를 부모가 맡고, 자녀는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간주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심은,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를 인식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가운데,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보살핌과 훈련과 애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참된 부모는 봉사와 보살핌을 계속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현명한 자녀는 이를 알아보고 감사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산업 시대와 도시 시대에,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계통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가족생활은 점점 더 호사스럽게 됐고, 한편 하나의 자산{資産}이 되곤 했던 자녀는 경제적 부채{負債}가 됐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성은,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점점 더 기꺼이 투자하려는 성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 또는 교회에 떠맡기려는 모든 시도는, 문명의 복지와 발전에 자살 행위임이 입증될 것이다.

결혼은, 자녀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가족 생활과 함께,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자극하며, 동시에 필사자 인간성의 이런 자극 받은 속성을 나타내도록 이상적인 길을 제공한다. 가족은 인간 종족들이 생물학적으로 존속되게 한다. 가정은 자연스런 사회 경기장인데, 자라나는 자녀들은 핏줄로 맺어진 형제관계의 윤리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인내, 이타심{利他心}, 아량, 및 관용에 대한 훈계를 배우는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 사이의 형제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요소다.

문명화된 종족들이 **안드족속**의 가족_협의회 풍습으로 더욱 널리 되돌아간다면,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들은 가부장 형태 또는 독재 형태의 가족 운영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친숙했고 협조적이었는데, 가족과 관련되는 모든 제안과 규칙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토의했다. 그들은 가족 운영체제의 모든 일에서 더할 나위 없이 우애 있었다. 이상적인 가족 안에서 효도와 부모 사랑은 모두, 형제로서 헌신함으로 확대된다.

84:7.23 (941.4) 2. Artificial and superficial education.

84:7.24 (941.5) 3. Inability of the child to gain culture by imitating parents — the parents are absent from the family picture so much of the time.

84:7.25 (941.6) The olden ideas of family discipline were biologic, growing out of the realization that parents were creators of the child's being. The advancing ideals of family life are leading to the concept that bringing a child into the world, instead of conferring certain parental rights, entails the supreme responsibility of human existence.

84:7.26 (941.7) Civilization regards the parents as assuming all duties, the child as having all the rights. Respect of the child for his parents arises, not in knowledge of the obligation implied in parental procreation, but naturally grows as a result of the care, training, and affection which are lovingly displayed in assisting the child to win the battle of life. The true parent is engaged in a continuous service-ministry which the wise child come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84:7.27 (941.8) In the present industrial and urban era the marriage institution is evolving along new economic lines. Family life has become more and more costly, while children, who used to be an asset, have become economic liabilities. But the security of civilization itself still rests on the growing willingness of one generation to invest in the welfare of the nex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ny attempt to shift parental responsibility to state or church will prove suicidal to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civilization.

84:7.28 (941.9) Marriage, with children and consequent family life, is stimulative of the highest potentials in human nature and simultaneously provides the ideal avenue for the expression of these quickened attributes of mortal personality. The family provides for the biologic perpetuation of the human species. The home is the natural social arena wherein the ethics of blood brotherhood may be grasped by the growing children. The family is the fundamental unit of fraternity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learn those lessons of patience, altruism, tolerance, and forbearance which are so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brotherhood among all men.

84:7.29 (941.10) Human society would be greatly improved if the civilized races would more generally return to the family-council practices of the Andites. They did not maintain the patriarchal or autocratic form of family government. They were very brotherly and associative, freely and frankly discussing every proposal and regulation of a family nature. They were ideally fraternal in all their family government. In an ideal family filial and parental affection are both augmented by fraternal devotion.

가족생활은 참된 도덕의 창시자요, 의무에 충성하는 의식(意識)의 선구자다. 가족생활에서 강제된 연합은, 다양한 다른 인물에게 적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통해서, 인간성을 안정시키고 인간성이 성장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참된 가족은--곧 훌륭한 가족은-- 육신의 부모에게, **창조주**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드러내며, 한편 동시에 그런 참된 부모는, 우주의 모든 자녀의 부모이신 **낙원** 부모의 사랑을 점점 더 보여주는, 상승하는 긴 과정 중에서 첫 단계를 자녀에게 나타낸다.

8. 자아_만족의 위험성

가족생활의 최고 위험은, 자아_만족, 즉 위험적으로 높아지는 현대의 쾌락에 대한 열광의 물결이다. 결혼으로 이끄는 첫째 동기는 늘 경제적인 것이었으며, 성적 매력은 2차적이었다. 자아_유지에 기초한 결혼은 자아_영속으로 이끌었고, 그와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아_만족을 제공했다. 결혼은 삶을 위한 세 가지 큰 동기 전부를 포함하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도다.

원래, 재산은 자아를_유지하는 기본 제도였고, 한편 결혼은 자아를_영속시키는 독특한 제도로서 작용했다. 주기적인 성적 탐닉과 함께, 흡족한 양식, 놀이, 및 유머가 자아_만족의 수단이었음에도, 진화하는 사회관행이 자아_만족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제도를 형성하기에 실패했음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만족스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전 문화된 기법으로 진화하지 못한 이런 실패 때문에, 모든 인간 제도가 이런 쾌락 추구로 너무 심각하게 몰들어 있다. 재산 축적은 모든 형태의 자아_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한편 결혼은 흔히 오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런 방종, 즉 널리 퍼진 이런 쾌락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일찍이 사회의 진화적 가족 생활 제도인 가정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이다.

보라색 인종은, 새롭고 오직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질을--곧 유머 감각과 결부된 놀이 본능을--인류의 체함에 도입했다. 이 본능은 **상익** 인종들과 **안돈족속**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담** 종족은, 이런 원시 성향을 **쾌락의 잠재성**, 즉 자아_만족의 미화(美化)된 새로운 형태에 이르도록 향상시켰다. 배고픔의 해소를 제외한다면, 자아_만족의 기본 유형은 성적 만족이며, 이런 형태의 관능적 쾌락은 **상익** 인종들과 **안돈족속**의 피가 섞임으로써 엄청나게 강화됐다.

안드족속 이후 인종의 불안감, 호기심, 모험심, 및 쾌락_방종 특질이 합쳐진 곳에, 진짜 위험

84:7.30 (942.1) Family life is the progenitor of true morality, the ancestor of the consciousness of loyalty to duty. The enforced associations of family life stabilize personality and stimulate its growth through the compulsion of necessitous adjustment to other and diverse personalities. But even more, a true family — a good family — reveals to the parental procreators the attitude of the Creator to his children, while at the same time such true parents portray to their children the first of a long series of ascending disclosures of the love of the Paradise parent of all universe children.

8. DANGERS OF SELF-GRATIFICATION

84:8.1 (942.2) The great threat against family life is the menacing rising tide of self-gratification, the modern pleasure mania. The prime incentive to marriage used to be economic; sex attraction was secondary. Marriage, founded on self-maintenance, led to self-perpetuation and concomitantly provided one of the most desirable forms of self-gratification. It is the only institution of human society which embraces all three of the great incentives for living.

84:8.2 (942.3) Originally, property was the basic institution of self-maintenance, while marriage functioned as the unique institution of self-perpetuation. Although food satisfaction, play, and humor, along with periodic sex indulgence, were means of self-gratification, it remains a fact that the evolving mores have failed to build any distinct institution of self-gratification. And it is due to this failure to evolve specialized techniques of pleasurable enjoyment that all human institutions are so completely shot through with this pleasure pursuit. Property accumulation is becoming an instrument for augmenting all forms of self-gratification, while marriage is often viewed only as a means of pleasure. And this overindulgence, this widely spread pleasure mania, now constitutes the greatest threat that has ever been leveled at the social evolutionary institution of family life, the home.

84:8.3 (942.4) The violet race introduced a new and only imperfectly realized characteristic into the experience of humankind — the play instinct coupled with the sense of humor. It was there in measure in the Sangiks and Andonites, but the Adamic strain elevated this primitive propensity into the *potential of pleasure*, a new and glorified form of self-gratification. The basic type of self-gratification, aside from appeasing hunger, is sex gratification, and this form of sensual pleasure was enormously heightened by the blending of the Sangiks and the Andites.

84:8.4 (942.5) There is real danger in the combination of restlessness, curiosity, adventure, and

이 도사리고 있다. 혼{魂}의 열망은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쾌락 추구로 증대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술, 색감{色感}, 소리, 박자, 음악, 및 몸을 치장하는 자원을 다 소모시킨다 하더라도, 너희는 영을 살찌게 하거나 혼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에 공헌할 수 없으며; 자존심과 경쟁심은,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질을 증진시켜주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진보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는 모두 휴식을 즐기며, 회고 지휘자의 섬김을 즐긴다. 건전한 오락을 획득하고 기분을 드높여주는 놀이에 참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건전한 것이며; 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권태감을 막아주는 모든 취미, 오락, 휴식,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睡眠}은 보람 있는 것들이다. 경쟁적인 시합, 이야기하기, 그리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자아_만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낼 때, 거의 100만 년 동안, 인간은 오직 음식을 재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만 소금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

사람이 스스로 즐기도록 내버려둬라; 인간 종족들이 무수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을 수 있게 하라; 진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합리적 자아_만족, 즉 오랫동안 향상돼 온 생물학적 투쟁의 결실{結實}을 탐구하게 하라. 사람은 오늘날의 즐거움과 쾌락의 일부를 잘 획득했다. 그러나 너희는 운명의 목표를 잘 고려해 봐라! 자아를 유지하는 토대가 돼온 재산을 쾌락이 파괴시키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살이며; 자아_만족이, 결혼의 파탄, 가정생활의 타락, 가정의 파괴를 초래한다면, 정말로 치명적인 대가{代價}를 치른 것이다--가정은 인간이 진화로 획득한 최고의 성취이며,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유란시아에 파견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pleasure-abandon characteristic of the post-Andite races. The hunger of the soul cannot be satisfied with physical pleasures; the love of home and children is not augmented by the unwise pursuit of pleasure. Though you exhaust the resources of art, color, sound, rhythm, music, and adornment of person, you cannot hope thereby to elevate the soul or to nourish the spirit. Vanity and fashion cannot minister to home building and child culture; pride and rivalry are powerless to enhance the survival qualities of succeeding generations.

84:8.5 (942.6) Advancing celestial beings all enjoy rest and the ministry of the reversion directors. All efforts to obtain wholesome diversion and to engage in uplifting play are sound; refreshing sleep, rest, recreation, and all pastimes which prevent the boredom of monotony are worth while. Competitive games, storytelling, and even the taste of good food may serve as forms of self-gratification. (When you use salt to savor food, pause to consider that, for almost a million years, man could obtain salt only by dipping his food in ashes.)

84:8.6 (943.1) Let man enjoy himself; let the human race find pleasure in a thousand and one ways; let evolutionary mankind explore all forms of legitimate self-gratification, the fruits of the long upward biologic struggle. Man has well earned some of his present-day joys and pleasures. But look you well to the goal of destiny! Pleasures are indeed suicidal if they succeed in destroying property, which has become the institution of self-maintenance; and self-gratifications have indeed cost a fatal price if they bring about the collapse of marriage, the decadence of family life, and the destruction of the home — man's supreme evolutionary acquirement and civilization's only hope of survival.

84:8.7 (943.2)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85편. 숭배의 기원

⇨ 084

유란시아 책

08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5편
숭배의 기원

섹션

소개

1. 돌 숭배와 언덕 숭배
2. 식물 및 나무 숭배
3. 동물 숭배
4. 자연의 힘 숭배
5. 천체 숭배
6. 사람 숭배
7.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

소개

도덕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적 영향을 제쳐 놓으면, 원시 종교는, 생물학적 기원, 즉 자연스런 진화 발전으로 이룩됐다. 고등 동물에게는, 두려움은 있지만 환상{幻想}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 사람은 두려움에서, 그리고 환상이라는 수단으로, 원시 종교를 창시했다.

인간 종족들이 진화하면서 원시적 표현으로 숭배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 현재와 내세에 대한 더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훨씬 전이며, 이것은 종교라고 불릴 만하다. 초기의 종교는 본질에서 완전히 지적이었고, 오로지 관련되는 환경에 입각했다. 숭배의 대상은 모두 연상적{聯想的}인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거나, 정신이 단순한 원시 유란시아인의 평범한 체험 속에서 크게 돋보이는, 자연계의 물체로 구성됐다.

종교는, 일단 자연 숭배 수준을 넘어서 진화한 후에 영적 기원의 뿌리를 획득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 숭배가 발달하자, 사람의 개념은,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

PAPER 85

THE ORIGINS OF WORSHIP

SECTIONS

Introduction

1. Worship of Stones and Hills
2. Worship of Plants and Trees
3. The Worship of Animals
4. Worship of the Elements
5.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6. Worship of Man
7.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INTRODUCTION

85:0.1 (944.1) PRIMITIVE religion had a biologic origin, a natural evolutionary development, aside from moral associations and apart from all spiritual influences. The higher animals have fears but no illusions, hence no religion. Man creates his primitive religions out of his fears and by means of his illusions.

85:0.2 (944.2) In the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worship in its primitive manifestations appears long before the mind of man is capable of formulating the more complex concepts of life now and in the hereafter which deserve to be called religion. Early religion was wholly intellectual in nature and was entirely predicated on associational circumstances. The objects of worship were altogether suggestive; they consisted of the things of nature which were close at hand, or which loomed large in the commonplace experience of the simple-minded primitive Urantians.

85:0.3 (944.3) When religion once evolved beyond nature worship, it acquired roots of spirit origin but was nevertheless always condition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s nature worship developed, man's

에서 분업{分業}을 상상하게 됐으며;호수, 나무, 폭포, 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땅에 있는 다른 평범한 현상을 대표하는 자연의 영들이 있었다.

필사적 사람은 한때, 자신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숭배했다. 또한 하늘 위에 그리고 땅 표면 밑에 있을 것으로 상상되는 모든 것도 숭배했다. 원시인은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며;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현상을 숭배했다. 폭풍,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불, 열, 추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의 힘을 목격하자, 사람의 확장되는 정신은 엄청나게 감동받았다.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의 신비한 처방”이라고 여전히 일컫는다.

1. 돌 숭배와 언덕 숭배

진화하는 인간의 최초 숭배 대상은 돌이었다. 오늘날 남부 **인도**에 사는 **카테리** 민족은 북부 **인도**에 있는 여러 부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돌을 숭배한다. **아굽**이 돌을 베고 잔 것은, 그가 돌을 공경했기 때문이며;심지어 그 돌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라헬**은 신성시되는 여러 개의 돌을 자기 천막 안에 숨겼다.

돌은 처음에 초기의 사람에게 특이한 것으로 인상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경작된 땅 또는 목초지 표면에 갑자기 드러나는 특성 때문이었다. 사람은 그것이 땅을 갈아엎은 결과 또는 침식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돌이 종종 동물을 닮았기 때문에 초기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문명화된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동물 또는 심지어 사람의 얼굴을 무척 닮은, 산에 있는 수많은 돌 형태였다. 그러나 가장 심한 영향을 준 것은 운석{隕石}이었고, 원시인은 이 운석들이 화려하게 타오르면서 대기를 뚫고 돌진하는 것을 목격했다. 유성{流星}은 초기의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었고, 그런 타오르는 광선이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떤 영을 지구에 운반한 흔적이라고 쉽게 믿었다. 사람이 그런 현상을 숭배하게 됨은 당연했는데, 나중에 운석을 발견했을 때 특히 그랬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다른 돌에 대한 경외심을 더 확대시켰다. **벵골**에서는 많은 사람이 서기 1880년에 땅에 떨어진 운석을 숭배한다.

고대의 모든 씨족과 부족은 신성시하는 돌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현대 민족도 특정한 유형의 돌을--곧 보석을--상당히 공경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다섯 개의 돌 한 묶음을;**그리스**에서는 30개로 된 다발을 숭배했으며;홍색인 가운데서는 대개 돌들로 만든 원{圓}이었다. **로마인**은 **주피터**에게 소원을 빌 때 항상 돌을 공중에 던졌다.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돌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이 법적인 힘을 갖는 부

concepts envisioned a division of labor in the supermortal world; there were nature spirits for lakes, trees, waterfalls, rain, and hundreds of other ordinary terrestrial phenomena.

85:0.4 (944.4) At one time or another mortal man has worshiped every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including himself. He has also worshiped about everything imaginable in the sky and be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Primitive man feared all manifestations of power; he worshiped every natural phenomenon he could not comprehend. The observation of powerful natural forces, such as storms, floods, earthquakes, landslides, volcanoes, fire, heat, and cold, greatly impressed the expanding mind of man. The inexplicable things of life are still termed “acts of God” and “mysterious dispensations of Providence.”

1. WORSHIP OF STONES AND HILLS

85:1.1 (944.5) The first object to be worshiped by evolving man was a stone. Today the Kateri people of southern India still worship a stone, as do numerous tribes in northern India. Jacob slept on a stone because he venerated it; he even anointed it. Rachel concealed a number of sacred stones in her tent.

85:1.2 (944.6) Stones first impressed early man as being out of the ordinary becaus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would so suddenly appear on the surface of a cultivated field or pasture. Men failed to take into account either erosion or the results of the overturning of soil. Stones also greatly impressed early peoples because of their frequent resemblance to animals. The attention of civilized man is arrested by numerous stone formations in the mountains which so much resemble the faces of animals and even men. But the most profound influence was exerted by meteoric stones which primitive humans beheld hurtling through the atmosphere in flaming grandeur. The shooting star was awesome to early man, and he easily believed that such blazing streaks marked the passage of a spirit on its way to earth. No wonder men were led to worship such phenomena, especially when they subsequently discovered the meteors. And this led to greater reverence for all other stones. In Bengal many worship a meteor which fell to earth in A.D. 1880.

85:1.3 (945.1) All ancient clans and tribes had their sacred stones, and most modern peoples manifest a degree of veneration for certain types of stones — their jewels. A group of five stones was revered in India; in Greece it was a cluster of thirty; among the red men it was usually a circle of stones. The Romans always threw a stone into the air when invoking Jupiter. In India even to this day a stone can be used as a witness. In some

적으로 이용됐고, 그 권위로 범죄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순박한 필사자들이, 경건한 예식의 대상물을 통해서 **신격**을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맹목적 숭배물은 흔히 진정한 숭배 대상의 상징일 뿐이다.

고대인은 돌에 있는 구멍에 색다른 관심을 가졌다. 구멍이 많은 그런 돌은 대개 병 고치는 효험을 지녔다고 여겼다.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는 않았지만, 손잡이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돌을 넣어 뒀다. 현대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동전에 구멍을 낸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은 숭배하는 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진보가 늦은 모든 부족과 민족 가운데서, 돌은 아직도 미신처럼 공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돌 숭배는 지금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묘비(墓碑)는 죽은 동료의 영 및 유령을 믿는 것과 관련해, 돌에 새겨진 형상과 우상의 잔존 상징이다.

언덕 숭배가 돌 숭배 후에 발생했고, 공경 대상이 된 최초의 언덕은 큰 돌로 형성된 것이었다. 신(神)들이 산에 거주한다는 믿음이 이윽고 관습으로 변했고, 그리하여 높이 솟은 땅은 이런 추가적 이유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산은 특정한 신과 관련됐고, 그리하여 거룩하게 여겨졌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원주민은, 동굴이 악한 영과 귀신들이 있는 지하 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산(山)은, 나중에 진화하는 선한 영 및 신격들의 개념과 동일시됐다.

2. 식물 및 나무 숭배

식물은,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나중에는 취하게 하는 액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됐다. 원시 시대의 인간은, 취하게 하는 물질이 사람을 신성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런 체험에는 진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현대에도 술을 “영들”이라고 일컫는다.

옛 사람은 짙이 나는 곡식을 불안감과 미신 같은 경외감으로 바라봤다. 싹트는 곡식에서 심오한 영적 교훈을 도출해 내고, 그 위에 종교적 신념의 근거를 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무를 숭배하는 종파(宗派)는 가장 오래된 종교 집단에 속한다. 모든 초기 결혼식은 나무 아래서 이뤄졌고,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을 때, 튼튼한 떡갈나무를 다정하게 껴안고 숲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러 식물과 나무는, 치료하는 효력을 지녔거나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경 대상이 됐다. 미개인은 모든 화학 작용이 초자연적 힘의 직접 활동 때문이라고 믿었다.

regions a stone may be employed as a talisman of the law, and by its prestige an offender can be haled into court. But simple mortals do not always identify Deity with an object of reverent ceremony. Such fetishes are many times mere symbols of the real object of worship.

85:1.4 (945.2) The ancients had a peculiar regard for holes in stones. Such porous rocks were supposed to be unusually efficacious in curing diseases. Ears were not perforated to carry stones, but the stones were put in to keep the ear holes open. Even in modern times superstitious persons make holes in coins. In Africa the natives make much ado over their fetish stones. In fact, among all backward tribes and peoples stones are still held in superstitious veneration. Stone worship is even now widespread over the world. The tombstone is a surviving symbol of images and idols which were carved in stone in connection with beliefs in ghosts and the spirits of departed fellow beings.

85:1.5 (945.3) Hill worship followed stone worship, and the first hills to be venerated were large stone formations. It presently became the custom to believe that the gods inhabited the mountains, so that high elevations of land were worshiped for this additional reason. As time passed, certain mountains were associated with certain gods and therefore became holy. The ignorant and superstitious aborigines believed that caves led to the underworld, with its evil spirits and demons, in contrast with the mountains, which were identified with the later evolving concepts of good spirits and deities.

2. WORSHIP OF PLANTS AND TREES

85:2.1 (945.4) Plants were first feared and then worshiped because of the intoxicating liquors which were derived therefrom. Primitive man believed that intoxication rendered one divine. There was supposed to be something unusual and sacred about such an experience. Even in modern times alcohol is known as “spirits.”

85:2.2 (945.5) Early man looked upon sprouting grain with dread and superstitious awe. The Apostle Paul was not the first to draw profound spiritual lessons from, and predicate religious beliefs on, the sprouting grain.

85:2.3 (945.6) The cults of tree worship are among the oldest religious groups. All early marriages were held under the trees, and when women desired children, they would sometimes be found out in the forest affectionately embracing a sturdy oak. Many plants and trees were venerated because of their real or fancied medicinal powers. The savage believed that all chemical effects were due to the direct activity of supernatural forces.

나무 영들에 관한 관념은 부족과 종족마다 크게 달랐다. 어떤 나무에는 인정 많은 영이 살고; 다른 나무에는 현혹하는 사악한 영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핀란드인**은 친절한 영들이 대부분의 나무에 들어있다고 믿었다. **스위스인**은 오랫동안 나무를 불신했는데, 교활한 영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인도**와 동부 **러시아** 주민은 나무의 영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파타고니아** 주민은, 초기 **셈족**처럼, 여전히 나무를 숭배한다. **히브리인**은, 나무 숭배를 멈춘 지 오랜 세월 후에, 작은 숲에서 다양한 신격을 계속 공경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생명나무**에 대한 보편적 중파가 한때 있었다.

점치는 나무 막대기로 땅 밑에 있는 물 또는 귀중한 금속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중파의 잔재다. **5월 축제**의 기둥,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두드리는 미신적 풍습이,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관습과 훗날의 나무 중파에 있었던 어떤 것을 영속시키고 있다.

초기 형태의 이 자연 숭배 가운데 다수는 후대의 진화하는 숭배 기법과 혼합됐지만, 새롭게 깨어나는 인류의 종교 본성이 영적 영향의 충동에 완전히 반응하게 되기 훨씬 전에, 보조 정신이 활성화시킨 가장 초기 유형의 숭배가 작용하고 있었다.

3. 동물 숭배

원시인은 고등 동물에 대해서 특이하고 다정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조상은 그것들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 그것들과 교미{交尾} 관계를 갖기도 했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의 혼이 동물 형태가 되어 땅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런 신념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동물숭배 풍습의 잔존물이다.

초기의 사람들은 동물의 힘과 민첩함 때문에 그것들을 숭배했다. 그들은, 특정한 생물이 예민하게 냄새 맡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영{靈}의 안내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물들은 모두 이런 저런 종족에게 때때로 숭배 받았다. 그런 숭배 대상물 중에는, 반인반마{半人半馬} 또는 인어{人魚}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로 생각되는 피조물이 있었다.

히브리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뱀을 숭배했고, **힌두인**은 아직도 자기 집에 있는 뱀을 잘 대우하고 있다. **중국인**의 용 숭배는 뱀 숭배의 잔재다. 뱀의 지혜는 **그리스** 의술의 상징이었고, 현대 의사들이 여전히 표상{表象}으로 사용하고 있다. 뱀을 길들이는 기술은, 일상적으로 뱀에 물려서 면역성을 갖게 되어 사실적으로 독액{毒液}에 완전히 중독되고, 이 독극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뱀을 모시는 중파의 여자 무당 시대부터 전해 내려 왔다.

85:2.4 (945.7) Ideas about tree spirits varied greatly among different tribes and races. Some trees were indwelt by kindly spirits; others harbored the deceptive and cruel. The Finns believed that most trees were occupied by kind spirits. The Swiss long mistrusted the trees, believing they contained tricky spirits. The inhabitants of India and eastern Russia regard the tree spirits as being cruel. The Patagonians still worship trees, as did the early Semites. Long after the Hebrews ceased tree worship, they continued to venerate their various deities in the groves. Except in China, there once existed a universal cult of the *tree of life*.

85:2.5 (946.1) The belief that water or precious metals beneath the earth's surface can be detected by a wooden divining rod is a relic of the ancient tree cults. The Maypole, the Christmas tree, and the superstitious practice of rapping on wood perpetuate certain of the ancient customs of tree worship and the later-day tree cults.

85:2.6 (946.2) Many of these earliest forms of nature veneration became blended with the later evolving techniques of worship, but the earliest mind-adjutant-activated types of worship were functioning long before the newly awakening religious nature of mankind became fully responsive to the stimulus of spiritual influences.

3. THE WORSHIP OF ANIMALS

85:3.1 (946.3) Primitive man had a peculiar and fellow feeling for the higher animals. His ancestors had lived with them and even mated with them. In southern Asia it was early believed that the souls of men came back to earth in animal form. This belief was a survival of the still earlier practice of worshipping animals.

85:3.2 (946.4) Early men revered the animals for their power and their cunning. They thought the keen scent and the farseeing eyes of certain creatures betokened spirit guidance. The animals have all been worshiped by one race or another at one time or another. Among such objects of worship were creatures that were regarded as half human and half animal, such as centaurs and mermaids.

85:3.3 (946.5) The Hebrews worshiped serpents down to the days of King Hezekiah, and the Hindus still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ir house snakes. The Chinese worship of the dragon is a survival of the snake cults. The wisdom of the serpent was a symbol of Greek medicine and is still employed as an emblem by modern physicians. The art of snake charming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days of the female shamans of the *snake love cult*, who, as the result of daily snake bites, became immune, in fact, became genuine venom addicts and could not get

곤충 및 다른 동물 숭배는 나중에 --너희가 받 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모든 생물체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장됐다. 고대인은 새의 날개가 모든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때 믿었으므로, 날개 달린 모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숭배했다. 초기 **노르딕족**은, 늑대가 해나 달의 일부를 먹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힌두인**은 말의 머리를 가진 **비쉬누**를 종종 보여준다. 동물 형상이, 잊혀진 신(神) 또는 사라진 종파를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기 진화 종교에서, 양은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전형이 됐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됐다.

종교에서 상징주의는, 그 상징이 신앙심 깊은 원래의 개념을 바꾸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주의는 노골적인 우상숭배와 혼동돼서는 안 되는데, 우상숭배는 물질 대상을 직접, 실제로 숭배한다.

4. 자연의 힘 숭배

인류는, 땅, 공기, 물, 및 불을 숭배했다. 원시 종족들은 우물을 공경했고 강을 숭배했다. 지금도 **몽골**에서는 영향력 있는 강 숭배 종파가 번창하고 있다. **바벨론**에서는 세례가 종교 예식절차가 됐고, **그리스인**은 해마다 제례적 목욕을 시행했다. 거품이 일어나는 우물, 용솟음치는 분수, 흐르는 강, 그리고 맹렬한 급류 속에 영(靈)들이 산다고, 고대인이 상상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움직이는 물은, 이 단순한 정신의 사람을, 영 활동력과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생생하게 감동시켰다. 어떤 강의 신(神)을 거역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물과 다양한 사건이, 여러 시대마다 서로 다른 민족에게 종교적 자극제로 작용했다. 무지개는 **인도** 고지대에 사는 많은 부족에게 여전히 숭배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를 거대한 천상의 뱀으로 여기며; **히브리인**과 **그리스도교인**은 “약속의 활”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한 지역에서 유익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동풍을 신(神)으로 여기지만; **인도**에서는 그것이 먼지와 가뭄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귀로 여긴다. 고대의 **베두원족**은 자연의 영이 모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심지어 **모세** 시대에도 자연의 영들을 믿는 믿음이 충분히 강해서, 그것들이 **히브리** 신학에서, 불, 물, 및 공기의 천사로 영구히 존속되도록 보장했다.

수많은 원시 부족과 초기의 많은 자연 숭배 종파가, 구름, 비, 및 우박을 모두 두려워하고 숭배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는 초기 인

along without this poison.

85:3.4 (946.6) The worship of insects and other animals was promoted by a later mis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 doing to others (every form of life) as you would be done by. The ancients once believed that all winds were produced by the wings of birds and therefore both feared and worshiped all winged creatures. The early Nordics thought that eclipses were caused by a wolf that devoured a portion of the sun or moon. The Hindus often show Vishnu with a horse's head. Many times an animal symbol stands for a forgotten god or a vanished cult. Early in evolutionary religion the lamb became the typical sacrificial animal and the dove the symbol of peace and love.

85:3.5 (946.7) In religion, symbolism may be either good or bad just to the extent that the symbol does or does not displace the original worshipful idea. And symbolism must not be confused with direct idolatry wherein the material object is directly and actually worshiped.

4. WORSHIP OF THE ELEMENTS

85:4.1 (946.8) Mankind has worshiped earth, air, water, and fire. The primitive races venerated springs and worshiped rivers. Even now in Mongolia there flourishes an influential river cult. Baptism became a religious ceremonial in Babylon, and the Creeks practiced the annual ritual bath. It was easy for the ancients to imagine that the spirits dwelt in the bubbling springs, gushing fountains, flowing rivers, and raging torrents. Moving waters vividly impressed these simple minds with beliefs of spirit animation and supernatural power. Sometimes a drowning man would be refused succor for fear of offending some river god.

85:4.2 (947.1) Many things and numerous events have functioned as religious stimuli to different peoples in different ages. A rainbow is yet worshiped by many of the hill tribes of India. In both India and Africa the rainbow is thought to be a gigantic celestial snake; Hebrews and Christians regard it as “the bow of promise.” Likewise, influences regarded as beneficent in one part of the world may be looked upon as malignant in other regions. The east wind is a god in South America, for it brings rain; in India it is a devil because it brings dust and causes drought. The ancient Bedouins believed that a nature spirit produced the sand whirls, and even in the times of Moses belief in nature spirits was strong enough to insure their perpetuation in Hebrew theology as angels of fire, water, and air.

85:4.3 (947.2) Clouds, rain, and hail have all been feared and worshiped by numerous primitive tribes and by many of the early nature cults. Windstorms

간에게 겁을 줬다. 그들은 이런 소란스런 자연 현상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천둥을 화난 신의 목소리로 간주했다. 불 숭배와 번개에 대한 두려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초기의 많은 집단 가운데서 널리 퍼졌다.

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시 필사 정신 속에서 마술과 혼합됐다. 마술 신봉자는, 마술 방식을 실행하다가 우연히 생긴 긍정적 결과 하나를 생생히 기억하는 반면, 철저하게 실패한 수많은 부정적 결과는 태연히 잊으려 한다. 불 숭상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조에 달했고 오래 지속됐다. 어떤 부족은 불을 신격 자체로 숭배했으며; 또 어떤 부족들은 그들이 공경하는 신격들의,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영의 타오르는 상징으로 불을 숭배했다. 베스타를 섬기는 처녀에게는, 신성시되는 불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고, 20세기에도 많은 종교 예배의 제례 일부분으로 촛불이 여전히 사용된다.

5. 천체 숭배

바위, 언덕, 나무, 및 동물의 숭배는 자연적으로 발달해서, 자연의 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단계를 거치고, 태양, 달, 및 별을 신격화 시킬 정도까지 됐다. 인도 및 기타 지역에서도, 별은 육신의 삶에서 떠난 위대한 사람의 영화롭게 된 혼이라고 여겼다. 별을 숭배하는 갈대아인은, 자신을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의 후손으로 여겼다.

달 숭배가 태양 숭배보다 먼저 있었다. 달 숭상은 사냥 시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한편 태양 숭배는 그 후에 이뤄진 농경 시대의 주요 종교 예식이 됐다. 태양 숭배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거기서 가장 오래 지속됐다.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가 나중에 미트라 숭배 종파를 탄생시켰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는 태양을 왕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다. 갈대아인은 “우주의 일곱 케도” 중심에 태양을 위치시켰다. 후대의 문명인들은, 한 주의 첫 날을 그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태양을 공경했다.

태양 신(神)은, 처녀로부터 탄생되는 운명의 아들들의 신비한 아버지라고 생각됐고, 이 아들들은 때때로 호감을 산 종족에게 구원자로서 증여된다고 생각됐다. 이런 초자연적 아기는 항상 색다른 방법으로 구출되도록 어떤 신성시되는 강물 위로 떠내려 오며, 구출된 후에는 자라나서 그 민족에게 기적의 인물과 구원자가 되곤 했다.

6. 사람 숭배

땅 위에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다른 것

with thunder and lightning overawed early man. He was so impressed with these elemental disturbances that thunder was regarded as the voice of an angry god. The worship of fire and the fear of lightning were linked together and were widespread among many early groups.

85:4.4 (947.3) Fire was mixed up with magic in the minds of primitive fear-ridden mortals. A devotee of magic will vividly remember one positive chance result in the practice of his magic formulas, while he nonchalantly forgets a score of negative results, out-and-out failures. Fire reverence reached its height in Persia, where it long persisted. Some tribes worshiped fire as a deity itself; others revered it as the flaming symbol of the purifying and purging spirit of their venerated deities. Vestal virgins were charged with the duty of watching sacred fires,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candles still burn as a part of the ritual of many religious services.

5.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85:5.1 (947.4) The worship of rocks, hills, trees, and animals naturally developed up through fearful veneration of the elements to the deification of the sun, moon, and stars. In India and elsewhere the stars were regarded as the glorified souls of great men who had departed from the life in the flesh. The Chaldean star cultist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the children of the sky father and the earth mother.

85:5.2 (947.5) Moon worship preceded sun worship. Veneration of the moon was at its height during the hunting era, while sun worship became the chief religious ceremony of the subsequent agricultural ages. Solar worship first took extensive root in India, and there it persisted the longest. In Persia sun veneration gave rise to the later Mithraic cult. Among many peoples the sun was regarded as the ancestor of their kings. The Chaldeans put the sun in the center of “the seven circles of the universe.” Later civilizations honored the sun by giving its name to the first day of the week.

85:5.3 (947.6) The sun god was supposed to be the mystic father of the virgin-born sons of destiny who ever and anon were thought to be bestowed as saviors upon favored races. These supernatural infants were always put adrift upon some sacred river to be rescued in an extraordinary manner, after which they would grow up to become miraculous personalities and the deliverers of their peoples.

6. WORSHIP OF MAN

85:6.1 (948.1) Having worshiped everything else on

을 숭배해 왔으므로, 사람은 자신을 찬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정신이 단순한 미개인은, 짐승, 인간, 및 신(神)들 사이를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초기의 사람은 모든 비범한 사람을 초인간으로 간주했고, 그런 존재를 너무 두려워해서 경외심으로 신봉했으며; 어느 정도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숭배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조차 매우 운 좋거나, 매우 운 나쁜 것으로 간주됐다. 미치광이, 간질 병자, 및 정신박약자가, 정상 정신을 가진 동료들의 숭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비정상 존재 속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제, 왕, 및 선지자가 숭배 받았으며; 나이 많은 거룩한 사람은 신격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고 여겼다.

부족장이 죽으면 신격화 됐다. 나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죽으면 성인(聖人)으로 여겼다. 오직 진화만으로는, 영화롭게 되고 높아지고 발전된 죽은 인간의 영보다 더 높은 신들을 만들어낸 적이 전혀 없었다. 초기 진화 단계서는 종교가 자체의 신들을 만든다. 계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들께서 종교를 공식화하신다. 진화 종교는, 필사적 사람과 비슷하게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신들을 만들지만; 계시 종교는, 필사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 한다.

인간에서 기원된다고 가정되는 유령 신은, 자연 신과는 구별돼야 하는데, 자연 숭배가 만신전(萬神殿)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즉 자연 영들을 신의 위치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자연 숭배 종파는, 나중에 나타난 유령 숭배 종파를 따라서 계속 발전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종교 체계가, 신격의 이중 개념, 즉 자연 신과 유령 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번개의 주인이면서 유령의 영웅이기도 한 토르가 설명하듯이, 어떤 신학(神學)에서는 이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얽혀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현재(現世)의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그런 공경을 명령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로, 자기들이 신격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주장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7.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

자연 숭배는, 원시 남녀의 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또 그것이 사실이었던; 이 시기에 바로 그 원시 정신 속에는 여섯째 보조 영이 항상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 보조 영은 인간의 진화 단계를 안내하는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증여돼 왔다. 그리고 이 보조 영은, 경배를 갈망하는 첫 징후가 아무리 원시적일지라도, 인간 종족들의 경배 충동을 변함없이 자극시키고 있었다. 동물적 두려움이 경건함을 표현하도록 자극했고, 그 초기 풍습이 자

the face of the earth and in the heavens above, man has not hesitated to honor himself with such adoration. The simple-minded savage make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beasts, men, and gods.

85:6.2 (948.2) Early man regarded all unusual persons as superhuman, and he so feared such beings as to hold them in reverential awe; to some degree he literally worshiped them. Even having twins was regarded as being either very lucky or very unlucky. Lunatics, epileptics, and the feeble-minded were often worshiped by their normal-minded fellows, who believed that such abnormal beings were indwelt by the gods. Priests, kings, and prophets were worshiped; the holy men of old were looked upon as inspired by the deities.

85:6.3 (948.3) Tribal chiefs died and were deified. Later, distinguished souls passed on and were sainted. Unaided evolution never originated gods higher than the glorified, exalted, and evolved spirits of deceased humans. In early evolution religion creates its own gods. In the course of revelation the Gods formulate religion. Evolutionary religion creates its gods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mortal man; revelatory religion seeks to evolve and transform mortal man into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85:6.4 (948.4) The ghost gods, who are of supposed human origi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nature gods, for nature worship did evolve a pantheon — nature spirit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gods. The nature cults continued to develop along with the later appearing ghost cults, and each exerted an influence upon the other. Many religious systems embraced a dual concept of deity, nature gods and ghost gods; in some theologies these concepts are confusingly intertwined, as is illustrated by Thor, a ghost hero who was also master of the lightning.

85:6.5 (948.5) But the worship of man by man reached its height when temporal rulers commanded such veneration from their subjects and, in substantiation of such demands, claimed to have descended from deity.

7.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85:7.1 (948.6) Nature worship may seem to have arisen naturally and spontaneously in the minds of primitive men and women, and so it did; but there was operating all this time in these same primitive minds the sixth adjutant spirit, which had been bestowed upon these peoples as a directing influence of this phase of human evolution. And this spirit was constantly stimulating the worship urge of the human species, no matter how primitive its first manifestations might be. The

연의 대상물에 집중됐음에도, 경배의 기질은, 경배 드리고 싶은 인간의 충동을 명확하게 탄생시켰다.

사고{思考}가 아니라 감정이, 모든 진화 발전에서 안내하고 통제된 영향력이었음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원시 정신 속에서는, 두려움, 회피, 존경, 및 숭배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경배하고 싶은 충동은 --묵상하고 체험을 숙고하는-- 지혜의 충고와 지도를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종교 현상으로 비로소 발전한다. 일곱째 보조 영, 즉 지혜의 기질이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때, 경배 과정에서 사람은, 자연과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자연의 **하나님**께로, 자연스런 만유의 영원한 **창조주**께로 비로소 고개를 돌린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 했음]

spirit of worship gave definite origin to the human impulse to worship, notwithstanding that animal fear motivated the expression of worshipfulness, and that its early practice became centered upon objects of nature.

85:7.2 (948.7) You must remember that feeling, not thinking, was the guiding and controlling influence in all evolutionary development. To the primitive mi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fearing, shunning, honoring, and worshiping.

85:7.3 (948.8) When the worship urge is admonished and directed by wisdom — meditative and experiential thinking — it then begins to develop into the phenomenon of real religion. When the seventh adjutant spirit, the spirit of wisdom, achieves effective ministration, then in worship man begins to turn away from nature and natural objects to the God of nature and to the eternal Creator of all things natural.

85:7.4 (949.1)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6편. 종교의 초기 진화

⇨ 085

유란시아 책

08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86편
종교의 초기 진화

섹션

소개

1. 우연:행운과 불운
2. 우연의 의인화
3. 죽음--설명할 수 없음
4. 죽음과 생존의 개념
5. 유령_혼 개념
6. 유령_영 환경
7. 원시 종교의 기능

소개

예전의 원시적 경배 충동으로 말미암은 종교의 진화는,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보편적 영 증여에 속하는 여섯째와 일곱째 정신_보조체의 지배적 영향 하에서 인간 정신이 정상으로 작용하면, 그런 발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자연이 인간의 의식{意識} 속에서 인격화되고, 초자연적 존재로 취급되고, 결국 신격화됨에 따라서, 종교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처음 가졌던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종교적 성향을 띄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유형의 종교는, 그런 정신이 일단 초자연 개념을 생각한 후에, 진화하는 동물 정신의 심리적 타성{惰性}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생물학적 결과였다.

1. 우연:행운과 불운

자연스런 경배 충동을 제외한다면, 초기 진화 종교는, 우연--소위 운수{運數}, 곧 보통 일어나는 일--을 인간이 체험한 데서 기원됐다. 원시인은 양식을 찾아다녔다. 그런 탐색 결과는 항상 변할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행운과 불운으로 표현하는

PAPER 86

EARLY EVOLUTION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1. Chance: Good Luck and Bad Luck
2. The Personification of Chance
3. Death — The Inexplicable
4. The Death-Survival Concept
5. The Ghost-Soul Concept
6. The Ghost-Spirit Environment
7. The Function of Primitive Religion

INTRODUCTION

86:0.1 (950.1) THE evolution of religion from the preceding and primitive worship urge is not dependent on revelation. The normal functioning of the human mind under the directive influence of the sixth and seventh mind-adjutants of universal spirit bestowal is wholly sufficient to insure such development.

86:0.2 (950.2) Man's earliest prereligious fear of the forces of nature gradually became religious as nature became personalized, spiritized, and eventually deified in human consciousness. Religion of a primitive type was therefore a natural biologic consequence of the psychologic inertia of evolving animal minds after such minds had once entertained concepts of the supernatural.

1. CHANCE: GOOD LUCK AND BAD LUCK

86:1.1 (950.3) Aside from the natural worship urge, early evolutionary religion had its roots of origin in the human experiences of chance — so-called luck, commonplace happenings. Primitive man was a food hunter. The results of hunting must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했다. 생존과 죽음의 불확실하고 초조한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남녀의 생애에서, 재수가 없는 것은 중대한 요소였다.

미개인의 제한된 지적 시야가 너무나 우연에 관심을 집중했으므로, 운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정한 요소가 됐다. 원시 유란시아인은, 생활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위해서 투쟁했으며;우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한 생애를 살았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변함없는 두려움이, 모든 쾌락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절망적 구름을 이 미개인 머리 위에 드리웠으며; 그들은 불운을 가져올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변함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미개인은, 행운이 연속되는 것을 항상 무서워했으며;그런 행운은 재난의 어떤 전조{前兆}라고 생각했다.

항상 나타나는 이 불운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는--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불운을 자초하겠는가? 생각 없는 사람들은 행운을 쉽게 잊지만--곧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운은 애써 기억한다.

초기의 사람은 불확실성과 --불운한-- 우연에 대한 부단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인생은 우연이라는 일종의 흥미진진한 경기였으며;실존은 도박이었다. 부분적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연을 믿고 도박에 미련을 두는 경향은 이상하지 않다. 원시인은 두 개의 잠재적 관심 즉: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는 욕망과, 무엇인가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이 도박은, 초기의 미개한 정신에게 주요 관심사였고 최고의 매력이었다.

목축하는 후대 사람들도, 우연과 운수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졌으며,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더 후대 사람들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인해 농작물이 직접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됐다. 농부는 가뭄, 홍수, 우박, 폭풍우, 해충, 및 식물의 질병뿐 아니라, 더위와 추위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영향이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자, 그들은 그것을 행운 또는 불운으로 간주했다.

이런 우연과 운수 관념이, 모든 고대 사람의 사고{思考}에 강력하게 침투했다. 심지어 후대에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에도:“내가 돌이켜 보니, 빠르다고 달리기에 이기지 않고, 강하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으며, 총명하다고 부자가 되지 않고, 숨쉴 있다고 잘되지도 않으며;숙명과 우연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자기 숙명을 알지 못하며;물고기 가 악한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밧에 걸리듯이, 사람의 아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ever vary, and this gives certain origin to those experiences which man interprets as *good luck* and *bad luck*. Mischance was a great factor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who lived constantly on the ragged edge of a precarious and harassed existence.

86:1.2 (950.4) The limited intellectual horizon of the savage so concentrates the attention upon chance that luck becomes a constant factor in his life. Primitive Urantians struggled for existence, not for a standard of living; they lived lives of peril in which chance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constant dread of unknown and unseen calamity hung over these savages as a cloud of despair which effectively eclipsed every pleasure; they lived in constant dread of doing something that would bring bad luck. Superstitious savages always feared a run of good luck; they viewed such good fortune as a certain harbinger of calamity.

86:1.3 (950.5) This ever-present dread of bad luck was paralyzing. Why work hard and reap bad luck — nothing for something — when one might drift along and encounter good luck — something for nothing? Unthinking men forget good luck — take it for granted — but they painfully remember bad luck.

86:1.4 (950.6) Early man lived in uncertainty and in constant fear of chance — bad luck. Life was an exciting game of chance; existence was a gamble. It is no wonder that partially civilized people still believe in chance and evince lingering predispositions to gambling. Primitive man alternated between two potent interests: the passion of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and the fear of getting nothing for something. And this gamble of existence was the main interest and the supreme fascination of the early savage mind.

86:1.5 (951.1) The later herders held the same views of chance and luck, while the still later agriculturists were increasingly conscious that crops were immediately influenced by many things over which man had little or no control. The farmer found himself the victim of drought, floods, hail, storms, pests, and plant diseases, as well as heat and cold. And as all of these natural influences affected individual prosperity, they were regarded as good luck or bad luck.

86:1.6 (951.2) This notion of chance and luck strongly pervaded the philosophy of all ancient peoples. Even in recent times in the Wisdom of Solomon it is said: “I returned and saw that the race is not to the swift, nor the battle to the strong, neither bread to the wise, nor riches to men of understanding, nor favor to men of skill; but fate and chance befall them all. For man knows not his fate; as fishes are taken in an evil net, and as birds are caught in a snare, so are the sons of men snared in an evil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

time when it falls suddenly upon them.”

2. 우연의 의인화

불안은 미개한 정신의 자연스런 상태다. 남녀가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 조상의 자연 생활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을 뿐이며, 불안이 실제로 고통스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활동을 억제하고 반드시 진화적 변화와 생물학적 적응을 시작한다. 고통과 고난은 점진적 진화에 필수다.

어떤 부족은, 살기 위한 투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소리 지르며 비탄에 잠기까지 한다. 원시인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계속 질문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한 물질 근원을 찾지 못했으므로, 영적 해결책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종교는,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자연을 두려워함은, 처음에 우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신비로움 때문에, 살기 위한 투쟁에서 한 요소가 됐다.

원시 정신은, 논리적이기는 했지만 영리하게 관련시키는 관념은 거의 없었으며, 미개한 정신은 무지했고 전적으로 순박했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미개인은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했다. 문명인이 미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개인 세상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지에 불과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필요가 없음을 인류가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인간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서 실존의 여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미개인은 감지할 수 없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인격화시키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자연과 우연 양쪽이 유령으로, 나중에는 신들로 인격화됐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당장 또는 훗날의 유익과 관계되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리사욕은 대체로 논리를 흐리게 만든다. 미개인과 문명인의 정신에서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 내용적인 것, 즉 질보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 초자연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두뇌를 쓰는 모든 형태의 힘든 일을 회피하려는, 게으르고 편리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운수라는 말은, 인간이 실존한 모든 시대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에 불과하며, 인간이 통찰할 수 없는, 또는 통찰하기 싫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연은, 사람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나태해서 원인을 측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부족할 때, 즉 인종에게 독창력과 모험심이 부족할 때에만 자연 현상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간주한다. 생명 현상을 탐구함으로써

2. THE PERSONIFICATION OF CHANCE

86:2.1 (951.3) Anxiety was a natural state of the savage mind. When men and women fall victims to excessive anxiety, they are simply reverting to the natural estate of their far-distant ancestors; and when anxiety becomes actually painful, it inhibits activity and unfailingly institutes evolutionary changes and biologic adaptations. Pain and suffering are essential to progressive evolution.

86:2.2 (951.4) The struggle for life is so painful that certain backward tribes even yet howl and lament over each new sunrise. Primitive man constantly asked, “Who is tormenting me?” Not finding a material source for his miseries, he settled upon a spirit explanation. And so was religion born of the fear of the mysterious, the awe of the unseen, and the dread of the unknown. Nature fear thus became a factor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first because of chance and then because of mystery.

86:2.3 (951.5) The primitive mind was logical but contained few ideas for intelligent association; the savage mind was uneducated, wholly unsophisticated. If one event followed another, the savage considered them to be cause and effect. What civilized man regards as superstition was just plain ignorance in the savage. Mankind has been slow to learn that there is not necessarily any relationship between purposes and results. Human beings are only just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 reactions of existence appear between acts and their consequences. The savage strives to personalize everything intangible and abstract, and thus both nature and chance become personalized as ghosts — spirits — and later on as gods.

86:2.4 (951.6) Man naturally tends to believe that which he deems best for him, that which is in his immediate or remote interest; self-interest largely obscures logic.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ds of savage and civilized men is more one of content than of nature, of degree rather than of quality.

86:2.5 (951.7) But to continue to ascribe things difficult of comprehension to supernatural causes is nothing less than a lazy and convenient way of avoiding all forms of intellectual hard work. Luck is merely a term coined to cover the inexplicable in any age of human existence; it designates those phenomena which men are unable or unwilling to penetrate. Chance is a word which signifies that man is too ignorant or too indolent to determine causes. Men regard a natural occurrence as an accident or as bad luck only when they are destitute of curiosity and imagination, when the

말미암아, 우연과 운수 그리고 소위 돌발사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며, 그 대신, 분명한 원인이 모든 결과에 앞서는, 법과 질서가 있는 우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가는 기쁨으로 바뀐다.

미개인은, 모든 자연이 살아있다고, 즉 무언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문명화된 사람도 여전히,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부딪치는 생명 없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저주한다. 원시인은 결코 무엇이든지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었다. 원시인에게 숙명의 영역, 운수의 역할, 영 세계는, 원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직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있었다. 운수는 영 세계가 번덕스럽게 기본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봤으며; 나중에는 신{神}들의 익살스러움이라고 봤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정령숭배로부터 발전하지는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정령숭배와 동시에 존재했고, 이 믿음들 역시 경배로 이끌었다. 자연주의는 종교가 아니다--종교의 산물이다.

3. 죽음--설명할 수 없음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충격이었고, 우연과 신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라 죽음의 충격이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종교를 육성했다. 죽음은 미개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개 폭력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폭력이 아닌 원인으로 죽는 것을 점점 더 신비하게 여겼다. 자연스럽고 예상되는 인생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원시 민족의 의식(意識)에 명료하지 않았고, 그 필연성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초기의 사람은 생명을 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죽음은 어떤 부류의 존재가 찾아온 것으로 간주했다. 모든 종족은 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초기 입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통이다. 인간 정신에는, 막연하고 조직되지 않은 영 세계에 대한 불투명한 개념이 이미 존재했는데,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이 세계로부터 나왔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여러 현상의 목록에 죽음이 첨가됐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자연사{自然死}는, 처음에는 영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인종들은 “원수”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종교 예식에 의존해서 이를 치유하려고 한다. 후대의 더 복잡한 신학 체계도 여전히 죽음을 영 세계의 작용 탓으로 돌렸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원죄(原罪)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됐다.

질병과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racess lack initiative and adventure. Exploration of the phenomena of life sooner or later destroys man's belief in chance, luck, and so-called accidents, substituting therefor a universe of law and order wherein all effects are preceded by definite causes. Thus is the fear of existence replaced by the joy of living.

86:2.6 (952.1) The savage looked upon all nature as alive, as possessed by something. Civilized man still kicks and curses those inanimate objects which get in his way and bump him. Primitive man never regarded anything as accidental; always was everything intentional. To primitive man the domain of fate, the function of luck, the spirit world, was just as unorganized and haphazard as was primitive society. Luck was looked upon as the whimsical and temperamental reaction of the spirit world; later on, as the humor of the gods.

86:2.7 (952.2) But all religions did not develop from animism. Other concepts of the supernatural were contemporaneous with animism, and these beliefs also led to worship. Naturalism is not a religion — it is the offspring of religion.

3. DEATH — THE INEXPLICABLE

86:3.1 (952.3) Death was the supreme shock to evolving man, the most perplexing combination of chance and mystery. Not the sanctity of life but the shock of death inspired fear and thus effectively fostered religion. Among savage peoples death was ordinarily due to violence, so that nonviolent death became increasingly mysterious. Death as a natural and expected end of life was not clear to the consciousness of primitive people, and it has required age upon age for man to realize its inevitability.

86:3.2 (952.4) Early man accepted life as a fact, while he regarded death as a visitation of some sort. All races have their legends of men who did not die, vestigial traditions of the early attitude toward death. Already in the human mind there existed the nebulous concept of a hazy and unorganized spirit world, a domain whence came all that is inexplicable in human life, and death was added to this long list of unexplained phenomena.

86:3.3 (952.5) All human disease and natural death was at first believed to be due to spirit influence. Even at the present time some civilized races regard disease as having been produced by “the enemy” and depend upon religious ceremonies to effect healing. Later and more complex systems of theology still ascribe death to the action of the spirit world, all of which has led to such doctrines as original sin and the fall of man.

86:3.4 (952.6) It was the realization of impotency before the mighty forces of nature, together with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은, 미개인으로 하여금 초물 질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도록 강요했으며, 그는 이 초물질 세계가 인생에서 불가해한 변천의 근원이라고 어렴풋이 상상했다.

4. 죽음과 생존의 개념

필사자 인간성의 초물질 국면에 대한 개념은 무의식에서 생겨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것, 유령에 대한 꿈이, 순전히 우연하게 관련됨으로써 생겨났다. 죽은 부족장(部族長)에 대한 꿈을 여러 부족원이 동시에 꾸게 된 것은, 옛 부족장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땀을 흘리고, 떨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꿈에서 깨어난 미개인에게, 그것은 모두 너무나 생생했다.

미래에 실존한다는 믿음이 꿈에서 기원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상상하려는 경향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꿈_유령_미래_생애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이, 이윽고 자아를_보존하는 생물학적 본능과 관련해서, 죽음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초기의 사람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추운 지방에서 더 그랬는데, 거기서는 숨을 내설 때 입김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유일한 현상으로 간주됐다. 그는 호흡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잠자는 동안 모든 종류의 괴상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비물질적인 무엇이 있다고 확신했다. 인간의 혼, 즉 유령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관념은, 호흡과_꿈 개념의_체계로부터 생겨났다.

미개인은 결국 자신이 --육체와 호흡이라는-- 이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육체를 제외한 호흡이, 영(靈), 즉 유령과 같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개념을 가진 반면, 유령 또는 영은 초인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이 실존한다는 이런 믿음이, 보기 드문, 괴상한, 드물게 일어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원시 교리가 만드시 불멸(不滅)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20개를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무한과 영원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환생(還生)을 생각했다.

주황인종은 특히 윤회(輪廻)와 환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환생 관념은 유전적 현상과 자손의 특징이 조상을 닮는 것을 관찰한 것에서 기원됐다. 조부모(祖父母) 및 다른 조상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을 믿기 때문이었다. 후대의 어떤 종족은 사람이 세 번 내지 일곱 번

the recognition of human weakness before the visitations of sickness and death, that impelled the savage to seek for help from the supermaterial world, which he vaguely visualized as the source of these mysterious vicissitudes of life.

4. THE DEATH-SURVIVAL CONCEPT

86:4.1 (952.7) The concept of a supermaterial phase of mortal personality was born of the unconscious and purely accidental association of the occurrences of everyday life plus the ghost dream. The simultaneous dreaming about a departed chief by several members of his tribe seemed to constitute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old chief had really returned in some form. It was all very real to the savage who would awaken from such dreams reeking with sweat, trembling, and screaming.

86:4.2 (953.1) The dream origin of the belief in a future existence explains the tendency always to imagine unseen things in the terms of things seen. And presently this new dream-ghost-future-life concept began effectively to antidote the death fear associated with the biologic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86:4.3 (953.2) Early man was also much concerned about his breath, especially in cold climates, where it appeared as a cloud when exhaled. The *breath of life* was regarded as the one phenomenon which differentiated the living and the dead. He knew the breath could leave the body, and his dreams of doing all sorts of queer things while asleep convinced him that there was something immaterial about a human being. The most primitive idea of the human soul, the ghost, was derived from the breath-dream idea-system.

86:4.4 (953.3) Eventually the savage conceived of himself as a double — body and breath. The breath minus the body equaled a spirit, a ghost. While having a very definite human origin, ghosts, or spirits, were regarded as superhuman. And this belief in the existence of disembodied spirits seemed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the unusual, the extraordinary, the infrequent, and the inexplicable.

86:4.5 (953.4) The primitive doctrine of survival after death was not necessarily a belief in immortality. Beings who could not count over twenty could hardly conceive of infinity and eternity; they rather thought of recurring incarnations.

86:4.6 (953.5) The orange race was especially given to belief in transmigration and reincarnation. This idea of reincarnation originated in the observance of hereditary and trait resemblance of offspring to ancestors. The custom of naming children after grandparents and other ancestors was due to

죽는다고 믿었다. (맨선 세계에 관한 **아담**의 교훈의 잔재인) 이런 믿음과,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유물이, 20세기 야만인의, 다른 면에서 불합리한 교리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

초기의 사람에게는, 지옥 또는 장래의 형벌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미개인은, 저 세상의 삶을, 모든 불운을 제외한 이 세상 삶과 똑같이 생각했다. 나중에는 선한 유령과 나쁜 유령의 운명이--곧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원시 인종은, 사람이 이 인생을 떠난 그대로 다음 인생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했다. 늙은 사람은 너무 쇠약해지기 전에 죽음 당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

거의 모든 집단마다, 유령이 된 혼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졌다. **그리스인**은, 약한 사람의 혼은 반드시 허약하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런 무기력한 혼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데스**를 창안했으며; 튼튼치 못한 이 사람들은 그 망령도 작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초기 **안드족속**은 자기 유령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중국인**과 **이집트인**은 혼과 육체가 함께 머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인** 가운데서는, 이것 때문에 주의 깊게 무덤을 건축하게 됐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됐다. 심지어 현대인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애쓴다. **히브리인**은 각 개인의 복제(複製)된 허깨비가 **스울**로 내려간다고,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혼의 진화라는 교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했다.

5. 유령_혼 개념

사람의 비물질 부분은, 유령, 영, 망령(亡靈), 허깨비, 요괴, 그리고 최근에는 혼이라는 이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혼은 초기 사람의 꿈 대역(代役)이었으며; 접촉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필사자 자신과 똑같았다. 꿈 대역에 대한 믿음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사람처럼 혼이 있다는 개념을 직접 유도해 냈다. 이런 개념은, 자연이 영을 가졌다는 믿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에스키모인**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영을 가졌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유령이 된 혼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종족의 꿈꾸는 생활이 점차 더 개발됐고, 이런 진화하는 영 세계의 활동이 확장됐으므로, 마침내 죽음을 “유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시 부족은, 어떤 혼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미신 같은 이런 혼 개념은 무너지고, 혼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 정신과 거기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즉 **사고 조율사**가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새로

belief in reincarnation. Some later-day races believed that man died from three to seven times. This belief (residual from the teachings of Adam about the mansion worlds), and many other remnants of revealed religion, can be found among the otherwise absurd doctrines of twentieth-century barbarians.

86:4.7 (953.6) Early man entertained no ideas of hell or future punishment. The savage looked upon the future life as just like this one, minus all ill luck. Later on, a separate destiny for good ghosts and bad ghosts — heaven and hell — was conceived. But since many primitive races believed that man entered the next life just as he left this one, they did not relish the idea of becoming old and decrepit. The aged much preferred to be killed before becoming too infirm.

86:4.8 (953.7) Almost every group had a different idea regarding the destiny of the ghost soul. The Greeks believed that weak men must have weak souls; so they invented Hades as a fit place for the reception of such anemic souls; these unrobust specimens were also supposed to have shorter shadows. The early Andites thought their ghosts returned to the ancestral homelands. The Chinese and Egyptians once believed that soul and body remained together. Among the Egyptians this led to careful tomb construction and efforts at body preservation. Even modern peoples seek to arrest the decay of the dead. The Hebrews conceived that a phantom replica of the individual went down to Sheol; it could not return to the land of the living. They did make that important advance in the doctrine of the evolution of the soul.

5. THE GHOST-SOUL CONCEPT

86:5.1 (953.8) The nonmaterial part of man has been variously termed ghost, spirit, shade, phantom, specter, and latterly *soul*. The soul was early man's dream double; it was in every way exactly like the mortal himself except that it was not responsive to touch. The belief in dream doubles led directly to the notion that all things animate and inanimate had souls as well as men. This concept tended long to perpetuate the nature-spirit beliefs; the Eskimos still conceive that everything in nature has a spirit.

86:5.2 (954.1) The ghost soul could be heard and seen, but not touched. Gradually the dream life of the race so developed and expanded the activities of this evolving spirit world that death was finally regarded as “giving up the ghost.” All primitive tribes, except those little above animals, have developed some concept of the soul. As civilization advances, this superstitious concept of the soul is destroyed, and man is wholly dependent on revelation and personal religious

운 혼 관념을 얻으려고, 사람은 계시와 개인의 종교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초기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영 개념과, 진화 본성을 가진 혼 개념을 대개 구분하지 못했다. 미개인은, 유령이 된 혼이 원래 몸속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감싸는 외부 매개체인지에 대해서 매우 혼돈을 일으켰다. 혼란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理性的}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 유령, 및 영에 대한 미개한 관점이 왜 총체적으로 모순되는지를 설명한다.

향기가 꽃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이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옛 사람은 혼이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몸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 혼하게 잠시 기절하는 경우.
2. 잠자면서, 자연스럽게 꿈꾸는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해서, 혼수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경우.
4. 죽어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

미개인은, 재채기를 혼이 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다. 깨어서 지킴으로써, 혼이 도망치려는 것을 몸이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는, 재채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이라는 말과 같은, 어떤 종교적 표현이 언제나 따라왔다.

초기 진화에서, 잠자는 것은 유령이 된 혼이 육체에서 떠날 수 있음을 증거 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소리침으로써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형태의 무의식 속에 있을 때 혼이 더 멀리 떠난 것으로, 즉 아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으로--즉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됐다. 꿈은, 잠자는 동안 혼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개인은, 깨서 겪는 체험의 일부분과 마찬가지로, 꿈 꿈도 똑같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옛 사람은 혼이 몸속으로 돌아올 시간을 갖도록, 잠자는 사람을 급히 깨우지 않는 풍습을 제정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사람들은 밤에 나타나는 허깨비를 두려워했으며, 히브리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관념을 반대하는 모세의 명령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가 옳았는데, 영적인 세계의 인격체가 물질 존재와 대화할 방법을 모색할 때, 일상적인 꿈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사람은, 혼이 동물이나 무생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동물과 동일시하는, 인간이 늑대가 된다는 관념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잠들면 그의 혼이 늑대 또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야밤의 약탈 행위를 하기 위해 어슬렁거리

experience for his new idea of the soul as the joint creation of the God-knowing mortal mind and its indwelling divine spirit, the Thought Adjuster.

86:5.3 (954.2) Early mortals usually failed to differentiate the concepts of an indwelling spirit and a soul of evolutionary nature. The savage was much confused as to whether the ghost soul was native to the body or was an external agency in possession of the body. The absence of reasoned thought in the presence of perplexity explains the gross inconsistencies of the savage view of souls, ghosts, and spirits.

86:5.4 (954.3) The soul was thought of as being related to the body as the perfume to the flower. The ancients believed that the soul could leave the body in various ways, as in:

- 86:5.5 (954.4) 1. Ordinary and transient fainting.
- 86:5.6 (954.5) 2. Sleeping, natural dreaming.
- 86:5.7 (954.6) 3. Coma and unconsciousness associated with disease and accidents.
- 86:5.8 (954.7) 4. Death, permanent departure.

86:5.9 (954.8) The savage looked upon sneezing as an abortive attempt of the soul to escape from the body. Being awake and on guard, the body was able to thwart the soul's attempted escape. Later on, sneezing was always accompanied by some religious expression, such as "God bless you!"

86:5.10 (954.9) Early in evolution sleep was regarded as proving that the ghost soul could be absent from the body, and it was believed that it could be called back by speaking or shouting the sleeper's name. In other forms of unconsciousness the soul was thought to be farther away, perhaps trying to escape for good — impending death. Dreams were looked upon as the experiences of the soul during sleep while temporarily absent from the body. The savage believes his dreams to be just as real as any part of his waking experience. The ancients made a practice of awaking sleepers gradually so that the soul might have time to get back into the body.

86:5.11 (954.10) All down through the ages men have stood in awe of the apparitions of the night season, and the Hebrews were no exception. They truly believed that God spoke to them in dreams, despite the injunctions of Moses against this idea. And Moses was right, for ordinary dreams are not the methods employ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spiritual world when they seek to communicate with material beings.

86:5.12 (954.11) The ancients believed that souls could enter animals or even inanimate objects. This culminated in the werewolf ideas of animal identification. A person could be a law-abiding citizen by day, but when he fell asleep, his soul could enter a wolf or some other animal to prowl

며 다닐 수 있다고 믿었다.

원시인은 혼이 호흡과 관련된다고 생각했으며, 혼의 특성이 호흡으로 전해지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맹스런 우두머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숨을 크게 내쉬어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 가운데서는, **거룩한 영**을 증여하는 예식 중에 후보자에게 입김을 뿜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하늘들을 만들었고, 그 속에 있는 온 무리는, 그의 입이 생기를 불어넣어 지어졌다”고 기록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판아들이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행위가 오랫동안 관습이었다.

나중에는 그림자를 두려워했고, 호흡과 마찬가지로 숭배 대상이 됐다. 물에 비친 모습도 때로는 이중(二重) 자아의 증거로 간주됐으며, 거울을 미신적 두려움으로 응시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인이, 사람이 죽으면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여전히, 사진, 초상화, 모형, 또는 형상이 그 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킨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다.

혼은 호흡과 일치된다고 대개 생각됐지만, 또한 여러 부류의 민족은,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질에 혼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피 속에 유령이 현존한다는 한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셈족속**은 혼이 몸의 지방질 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으며, 동물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금기였다. 가죽 벗기기와 마찬가지로, 머리 잘라오기가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눈이 혼의 창문이라고 간주됐다.

혼이 세 개 내지 네 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을 하나 잃는 것은 불안감을, 두 개 잃는 것은 질병을, 세 개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혼이, 하나는 호흡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머리카락에, 또 하나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환자는 자신의 방황하는 혼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으로 야위를 방황하도록 충고 받았다. 가장 훌륭한 주술사는, 환자의 아픈 혼을 새로운 것으로, 즉 “새로운 탄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도난의 자손은, 두 개의 혼, 즉 호흡과 그림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초기 **노트족속** 부족들은, 인간이 두 인격자, 즉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봤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런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 관점에 반영됐다. **그리스인** 자신은 세 개의 혼을 믿었는데; 성장하는 혼은 배에, 동물적인 혼은 심장에, 지적인 혼은 머리에 있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인간이 세 부분, 즉: 몸, 혼, 및 이름으로 돼있다고 믿었다.

about on nocturnal depredations.

86:5.13 (955.1) Primitive men thought that the soul was associated with the breath, and that its qualities could be imparted or transferred by the breath. The brave chief would breathe upon the newborn child, thereby imparting courage. Among early Christians the ceremony of bestowing the Holy Spirit was accompanied by breathing on the candidates. Said the Psalmist: “By the word of the Lord were the heavens made and all the host of them by the breath of his mouth.” It was long the custom of the eldest son to try to catch the last breath of his dying father.

86:5.14 (955.2) The shadow came, later on, to be feared and revered equally with the breath. The reflection of oneself in the water was also sometimes looked upon as proof of the double self, and mirrors were regarded with superstitious awe. Even now many civilized persons turn the mirror to the wall in the event of death. Some backward tribes still believe that the making of pictures, drawings, models, or images removes all or a part of the soul from the body; hence such are forbidden.

86:5.15 (955.3) The soul was generally thought of as being identified with the breath, but it was also located by various peoples in the head, hair, heart, liver, blood, and fat. The “crying out of Abel’s blood from the ground” is expressive of the onetime belief in the presence of the ghost in the blood. The Semites taught that the soul resided in the bodily fat, and among many the eating of animal fat was taboo. Head hunting was a method of capturing an enemy’s soul, as was scalping. In recent times the eyes have been regarded as the windows of the soul.

86:5.16 (955.4) Those who held the doctrine of three or four souls believed that the loss of one soul meant discomfort, two illness, three death. One soul lived in the breath, one in the head, one in the hair, one in the heart. The sick were advised to stroll about in the open air with the hope of recapturing their strayed souls. The greatest of the medicine men were supposed to exchange the sick soul of a diseased person for a new one, the “new birth.”

86:5.17 (955.5) The children of Badonan developed a belief in two souls, the breath and the shadow. The early Nodite races regarded man as consisting of two persons, soul and body. This philosophy of human existence was later reflected in the Greek viewpoint. The Greeks themselves believed in three souls; the vegetative resided in the stomach, the animal in the heart, the intellectual in the head. The Eskimos believe that man has three parts: body, soul, and name.

6. 유령_영 환경

6. THE GHOST-SPIRIT ENVIRONMENT

사람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고, 사회 환경을 획득했으며, 유령이 둘러싼 환경을 상상했다. 국가는 사람이 자연 환경에 반응한 것이고, 가정은 사회 환경에 반응한 것이며, 교회는 유령이 둘러싸고 있다는 환상에 반응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아주 초기에는, 유령과 영에 대한 가상의 세계가 실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믿게 됐으며, 새롭게 상상한 이런 영 세계가 원시 공동체에서 어떤 권능을 갖게 됐다. 온 인류의 정신 및 도덕 생활은, 인간의 사고{思考}와 행동에서 이런 새로운 요소가 출현함으로 영구히 변경됐다.

필사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원시 민족들의 모든 미신과 종교는, 환상{幻想}과 무지라는 이런 주요 전제조건 속에 압축됐다. 이것은 계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유일한 종교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인종 가운데 다수가 이런 미숙한 진화 종교만 신봉하고 있다.

진화가 진행되면서, 행운은 선한 영과 연결되고, 불운은 악한 영과 관련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강제로 적응하는 불편함이 불운으로, 즉 영 유령들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됐다. 원시인은, 타고난 경배 충동과 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종교를 서서히 진화시켰다. 문명화된 사람은, 이런 우연한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책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은, 허구적인 영과 변덕스런 신들 대신 수학으로 계산하도록, 보험 회계사에게 맡긴다.

지나가는 각 세대는, 조상의 어리석은 미신을 비웃었으며, 한편 개화{開化}된 후손 가운데 일부를 더욱 비웃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그런 그릇된 사고와 숭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시인의 정신은 마침내, 타고난 모든 생물학적 충동을 초월하는 사상에 사로잡혔으며; 사람은 마침내, 물질적 충동에 대한 반응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조로 하는 삶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됐다. 원시적인 철학적 생활 방침의 시초{始初}가 나타났다. 초자연적인 생활 기준이 나타나게 됐는데, 영적인 유령이 화나면 불운을 가져오고, 유쾌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인간의 행위가 그에 따라서 조절돼야만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진화했으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계시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뤄졌다.

이런 개념이 출현하자, 항상 화내는 영을 달래기 위한 오랫동안의 낭비적 투쟁, 진화 종교의 두려움에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 그리고 무덤, 신전, 제물, 및 사제계층에게 인간의 노력을 바치는, 오래 계속된 낭비가 시작됐다. 그것은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대가{代價}였지만, 그 만큼 가치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비교적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됐고; 인간의 윤리가 탄생했기

86:6.1 (955.6) Man inherited a natural environment, acquired a social environment, and imagined a ghost environment. The state is man's reaction to his natural environment, the home to his social environment, the church to his illusory ghost environment.

86:6.2 (955.7)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realities of the imaginary world of ghosts and spirits became universally believed, and this newly imagined spirit world became a power in primitive society. The mental and moral life of all mankind was modified for all time by the appearance of this new factor in human thinking and acting.

86:6.3 (955.8) Into this major premise of illusion and ignorance, mortal fear has packed all of the subsequent superstition and religion of primitive peoples. This was man's only religion up to the times of revelation, and today many of the world's races have only this crude religion of evolution.

86:6.4 (955.9) As evolution progressed, good luck became associated with good spirits and bad luck with bad spirits. The discomfort of enforced adaptation to a changing environment was regarded as ill luck, the displeasure of the spirit ghosts. Primitive man slowly evolved religion out of his innate worship urge and his misconception of chance. Civilized man provides schemes of insurance to overcome these chance occurrences; modern science puts an actuary with mathematical reckoning in the place of fictitious spirits and whimsical gods.

86:6.5 (956.1) Each passing generation smiles at the foolish superstitions of its ancestors while it goes on entertaining those fallacies of thought and worship which will give cause for further smiling on the part of enlightened posterity.

86:6.6 (956.2) But at last the mind of primitive man was occupied with thoughts which transcended all of his inherent biologic urges; at last man was about to evolve an art of living based on something more than response to material stimuli. The beginnings of a primitive philosophic life policy were emerging. A supernatural standard of living was about to appear, for, if the spirit ghost in anger visits ill luck and in pleasure good fortune, then must human conduct be regulated accordingly. The concept of right and wrong had at last evolved; and all of this long before the times of any revelation on earth.

86:6.7 (956.3) With the emergence of these concepts, there was initiated the long and wasteful struggle to appease the ever-displeased spirits, the slavish bondage to evolutionary religious fear, that long waste of human effort upon tombs, temples, sacrifices, and priesthoods. It was a terrible and frightful price to pay, but it was worth all it cost, for man therein achieved a natural

때문이다!

consciousness of relative right and wrong; human ethics was born!

7. 원시 종교의 기능

7. THE FUNCTION OF PRIMITIVE RELIGION

미개인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운에 대처하는 마법 같은 보험수단으로, 두려움, 미신, 공포, 사제{司祭} 기증품 등의 힘든 사례금을 기꺼이 지불했다. 원시 종교는, 단순히 사냥터가 재난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 지불금이었으며; 문명화된 사람은, 산업의 재해와 현대적 방식의 삶에서 급박한 사정에 대비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86:7.1 (956.4) The savage felt the need of insurance, and he therefore willingly paid his burdensome premiums of fear, superstition, dread, and priest gifts toward his policy of magic insurance against ill luck. Primitive religion was simply the payment of premiums on insurance against the perils of the forests; civilized man pays material premiums against the accidents of industry and the exigencies of modern modes of living.

현대 사회는 사제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보험 업무를 뺏아서, 경제 영역에 맡기고 있다. 종교는 점점 더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대비책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인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은, 행운을 통제하기 위해서 낭비적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불운에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책략으로서 종교가 작용하던 예전의 기능과는 다르게, 종교는 더 높은 철학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86:7.2 (956.5) Modern society is remov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from the realm of priests and religion, placing it in the domain of economics. Religion is concerning itself increasingly with the insurance of life beyond the grave. Modern men, at least those who think, no longer pay wasteful premiums to control luck. Religion is slowly ascending to higher philosophic levels in contrast with its former function as a scheme of insurance against bad luck.

그러나 이 고대 종교 관념은, 사람이 숙명론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절망적 비관 상태에 빠지지 않게 예방했으며; 그들은 적어도 운명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종교는, 사람에게 *유령의 행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인간의 운명을 조절하는 초물질 세계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86:7.3 (956.6) But these ancient ideas of religion prevented men from becoming fatalistic and hopelessly pessimistic; they believed they could at least do something to influence fate. The religion of ghost fear impressed upon men that they must *regulate their conduct*, that there was a supermaterial world which was in control of human destiny.

현대의 문명화된 종족들은, 행운에 대한 해석과, 평범한 불평등의 실존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면서, 유령에 대한 두려움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 인류는, 유령_영 때문에 불운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사슬에서 해방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변천이 영적 원인으로 이뤄진다는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는 한편, 인간의 모든 불평등을 잘못된 정치적 적응과 사회의 불공정 그리고 산업 사회의 경쟁 탓으로 돌리도록 명령하는, 거의 똑같은 정도로 그릇된 가르침을 놀라울 정도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立法}, 자선행위의 증가, 그리고 산업 재구성의 향상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출생한 사실과 삶에서 생기는 우연을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실을 납득하고, 자연 법칙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조종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이룩하고, 바라지 않는 것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이끄는 과학 지식이, 소위 우연이라고 말하는 재난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다.

86:7.4 (956.7) Modern civilized races are just emerging from ghost fear as an explanation of luck and the commonplace inequalities of existence. Mankind is achieving emancipation from the bondage of the ghost-spirit explanation of ill luck. But while men are giving up the erroneous doctrine of a spirit cause of the vicissitudes of life, they exhibit a surprising willingness to accept an almost equally fallacious teaching which bids them attribute all human inequalities to political misadaptation, social injusti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But new legislation, increasing philanthropy, and more industrial reorganization, however good in and of themselves, will not remedy the facts of birth and the accidents of living. Only comprehension of facts and wise manipulation within the laws of nature will enable man to get what he wants and to avoid what he does not want. Scientific knowledge, leading to scientific action, is the only antidote for so-called accidental ills.

산업, 전쟁, 노예제도, 및 시민사회 정부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진화하는 데 반응해서 생겨났으며; 그와 유사하게 종교도 허구적 유령 세계라는, 가공{架空}의 환경에 반응해서 생겨났다. 종교는 자아_유지가 진화로 발전한 것

86:7.5 (957.1) Industry, war, slavery, and civil government arose in response to the social evolution of man in his natural environment; religion similarly arose as his response to the illusory environment of the imaginary ghost world.

이였으며,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고 철저히 논리가 없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원시 종교는,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진정한 영적 세력인 **사교 조율사**가 증여되도록, 그릇된 두려움의 강력하고 장엄한 힘을 이용하여 인간 정신의 토양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신성한 **조율사**는, **하나님**을_두려워하는 태도로부터 **하나님**을_사랑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려고, 그 후로 항상 수고해왔다. 진화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네바돈의 저녁별**이 제시했음]

Religion was an evolutionary development of self-maintenance, and it has worked, notwithstanding that it was originally erroneous in concept and utterly illogical.

86:7.6 (957.2) Primitive religion prepared the soil of the human mind, by the powerful and awesome force of false fear, for the bestowal of a bona fide spiritual force of supernatural origin, the Thought Adjuster. And the divine Adjusters have ever since labored to transmute God-fear into God-love. Evolution may be slow, but it is unerringly effective.

86:7.7 (957.3) [Presented by an Evening Star of Nebadon.]

제87편. 유령 종파

⇨ 086

유란시아 책

08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7편
유령 종파

섹션

소개

1. 유령 공포감
2. 유령 달래기
3. 조상 숭배
4.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5. 진보하는 유령 종파
6. 강압과 쫓아내기
7. 종파체계의 본질

PAPER 87
THE GHOST CULTS

SECTIONS

Introduction

1. Ghost Fear
2. Ghost Placation
3. Ancestor Worship
4. Good and Bad Spirit Ghosts
5. The Advancing Ghost Cult
6. Coercion and Exorcism
7. Nature of Cultism

소개

유령 종파(宗派)는 불운의 위험을 상쇄시키는 수단으로서 진화했으며; 그 원시 종교 의식(儀式)은, 불운을 염려하고 죽은 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생긴 결과였다. 이런 초기 종교 가운데 아무 것도, **신격**에 대한 인식 또는 초인(超人)에 대한 경의와 별로 상관이 없었으며; 그 제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는데, 유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유령 종파는 재난의 대비에 불과했으며; 더 높은 장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사람은 유령 종파와 오랫동안 쓰라린 투쟁을 해왔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유령_영에 대한 두려움에 비굴하게 노예가 됐던 이 모습보다, 더 유감스럽게 되도록 예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 이 두려움의 탄생과 함께, 인류는 종교적으로 진화하는 오르막길에서 발을 내딛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자아라는 해안선에서 떠났고, 참된 **신격**, 즉 참된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때까지, 닳을 내릴 곳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1. 유령 공포감

INTRODUCTION

87:0.1 (958.1) THE ghost cult evolved as an offset to the hazards of bad luck; its primitive religious observances were the outgrowth of anxiety about bad luck and of the inordinate fear of the dead. None of these early religions had much to do with the recognition of Deity or with reverence for the superhuman; their rites were mostly negative, designed to avoid, expel, or coerce ghosts. The ghost cult was nothing more nor less than insurance against disaster; it had nothing to do with investment for higher and future returns.

87:0.2 (958.2) Man has had a long and bitter struggle with the ghost cult. Nothing in human history is designed to excite more pity than this picture of man's abject slavery to ghost-spirit fear. With the birth of this very fear mankind started on the upgrade of religious evolution. Human imagination cast off from the shores of self and will not again find anchor until it arrives at the concept of a true Deity, a real God.

1. GHOST FEAR

죽음이란, 또 하나의 유령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고대인은,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유령과 투쟁하게 되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유령을 설득해서 죽음의 현장을 떠나게 하려고, 죽은 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하려고 항상 애썼다. 죽는 순간 유령이 밖으로 나온 때부터, 유령의 고향 나라, 즉 불분명하고 원시적인 개념의 가짜 하늘나라로 나중에 떠나는 때까지의, 과도기라고 상상하는 기간에, 유령을 가장 심하게 두려워했다.

미개인은 비록 유령에게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초자연적 지성을 갖는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유령을 속이고 기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속임수와 술책이 이용됐으며; 문명화된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심지어 전지{全知}한 **신격**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원시인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질병이 죽음의 전조인 경우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족 주술사가 고통 받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환자는 대개 가족이 기거하는 오두막으로부터 옮겨졌고, 격리된 채 죽을 수 있도록 더 작은 오두막이나 야외에 버려졌다. 죽음이 발생된 집은 대개 부숴 버렸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버려졌고, 초기의 사람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견고한 집을 짓지 못했다. 또한 그것은 영구적인 마을과 도시를 세우지 못하도록 작용했다.

미개인은 자기 씨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이야기했으며; 시체 근처에서 잠들면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했다. 시체로부터 전염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켰고, 모든 민족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정화{淨化}시키도록 고안된,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때 채택했었다. 고대인은 시체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믿었으며; 시체를 결코 어두운 곳에 방치해두려고 하지 않았다. 20세기에도, 시체 안치실에 여전히 촛불을 켜두며, 사람들이 시체를 지킨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도, 생활 철학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령을 속이려고 한다. 죽은 자의 오두막이 부서지지 않으면, 문을 통하지 않고 벽에 구멍을 만들어서 시체를 운반했다. 이 방책은 유령이 혼동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객{吊客}은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그 유령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이용했다. 유령이 무덤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 다른 여러 술책이 사용됐다. 유령을 속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애곡하는 관습은, 유족{遺族}을 변장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함으로

87.1.1 (958.3) Death was feared because death meant the liberation of another ghost from its physical body. The ancients did their best to prevent death, to avoid the trouble of having to contend with a new ghost. They were always anxious to induce the ghost to leave the scene of death, to embark on the journey to deadland. The ghost was feared most of all during the supposed transition period between its emergence at the time of death and its later departure for the ghost homeland, a vague and primitive concept of pseudo heaven.

87.1.2 (958.4) Though the savage credited ghosts with supernatural powers, he hardly conceived of them as having supernatural intelligence. Many tricks and stratagems were practiced in an effort to hoodwink and deceive the ghosts; civilized man still pins much faith on the hope that an outward manifestation of piety will in some manner deceive even an omniscient Deity.

87.1.3 (958.5) The primitives feared sickness because they observed it was often a harbinger of death. If the tribal medicine man failed to cure an afflicted individual, the sick man was usually removed from the family hut, being taken to a smaller one or left in the open air to die alone. A house in which death had occurred was usually destroyed; if not, it was always avoided, and this fear prevented early man from building substantial dwellings. It also militated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villages and cities.

87.1.4 (958.6) The savages sat up all night and talked when a member of the clan died; they feared they too would die if they fell asleep in the vicinity of a corpse. Contagion from the corpse substantiated the fear of the dead, and all peoples, at one time or another, have employed elaborate purification ceremonies designed to cleanse an individual after contact with the dead. The ancients believed that light must be provided for a corpse; a dead body was never permitted to remain in the dark. In the twentieth century, candles are still burned in death chambers, and men still sit up with the dead. So-called civilized man has hardly yet completely eliminated the fear of dead bodies from his philosophy of life.

87.1.5 (959.1) But despite all this fear, men still sought to trick the ghost. If the death hut was not destroyed, the corpse was removed through a hole in the wall, never by way of the door. These measures were taken to confuse the ghost, to prevent its tarrying, and to insure against its return. Mourners also returned from a funeral by a different road, lest the ghost follow. Backtracking and scores of other tactics were practiced to insure that the ghost would not return from the grave. The sexes often exchanged clothes in order to deceive the ghost. Mourning costumes were designed to disguise survivors; later on, to show

써 그 유령을 달래기 위해서 고안됐다.

2. 유령 달래기

종교에서, 유령을 진정시키는 소극적 강령(綱領)은, 영에게 강요하거나 간청하는 적극적 강령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인간의 첫 경배 행위는 방어 현상이었고, 존경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현대인이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을 현명하게 여기는 것처럼, 미개인은 유령이 일으키는 불운에 대비해서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이런 보장을 얻으려는 노력이, 유령 종파의 기법과 제례식을 제정했다.

유령의 큰 욕구를 신속히 “가라앉힘”으로 죽은 자의 나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때 지배적이었다. 그 유령을 진정시키는 제례식을 치르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만한 행동이나 실책이든지, 유령이 유령의 나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지연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것이 유령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화난 유령이, 재난, 불운, 및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장례 예배는, 유령이 된 혼으로 하여금 미래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생겨났고, 장례식 설교는 원래, 새로운 그 유령이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됐다. 유령의 여행을 위해서 양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런 물건을 무덤 속이나 무덤 근처에 놔뒀다. 미개인은, “유령을 달래기에”—곧 무덤 근처에서 멀리 떠나보내기까지—3일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혼이 시체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문다고 여전히 믿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유령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도록 하려고 침묵하거나 애곡했다. 고행은—곧 상처내기—일반적인 애곡 형태였다. 먼저 깨달은 여러 선생이 이런 행위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금식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자아 부정이 유령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의 나라로 실제로 떠나기 전까지 근처에 숨어있는 과도기에, 유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즐긴다고 생각했다.

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주 애곡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에 큰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매년 여러 주, 심지어 여러 달이, 정말로 이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곡에 소모됐다. 장례식 행사를 위해서 전문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고용됐다는 사실은, 그 애곡이 제례적이었고,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음을 설명한다. 현대인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별(死別) 때문에 애곡하기도 하지만, 고대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이 언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이름은 금기가 됐고, 이런 식으로

respect for the dead and thus appease the ghosts.

2. GHOST PLACATION

87:2.1 (959.2) In religion the negative program of ghost placation long preceded the positive program of spirit coercion and supplication. The first acts of human worship were phenomena of defense, not reverence. Modern man deems it wise to insure against fire; so the savage thought it the better part of wisdom to provide insurance against ghost bad luck. The effort to secure this protection constituted the techniques and rituals of the ghost cult.

87:2.2 (959.3) It was once thought that the great desire of a ghost was to be quickly “laid” so that it might proceed undisturbed to deadland. Any error of commission or omission in the acts of the living in the ritual of laying the ghost was sure to delay its progress to ghostland. This was believed to be displeasing to the ghost, and an angered ghost was supposed to be a source of calamity, misfortune, and unhappiness.

87:2.3 (959.4) The funeral service originated in man’s effort to induce the ghost soul to depart for its future home, and the funeral sermon was originally designed to instruct the new ghost how to get there. It was the custom to provide food and clothes for the ghost’s journey, these articles being placed in or near the grave. The savage believed that it required from three days to a year to “lay the ghost” — to get it away from the vicinity of the grave. The Eskimos still believe that the soul stays with the body three days.

87:2.4 (959.5) Silence or mourning was observed after a death so that the ghost would not be attracted back home. Self-torture — wounds — was a common form of mourning. Many advanced teachers tried to stop this, but they failed. Fasting and other forms of self-denial were thought to be pleasing to the ghosts, who took pleasure in the discomfort of the liv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lurking about before their actual departure for deadland.

87:2.5 (959.6) Long and frequent periods of mourning inactivity were one of the great obstacles to civilization’s advancement. Weeks and even months of each year were literally wasted in this nonproductive and useless mourning. The fact that professional mourners were hired for funeral occasions indicates that mourning was a ritual, not an evidence of sorrow. Moderns may mourn the dead out of respect and because of bereavement, but the ancients did this because of fear.

87:2.6 (959.7) The names of the dead were never spoken. In fact, they were often banished from the language. These names became taboo, and in

해서 언어는 빈번하게 약화됐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 또는 날”과 같은, 상징적인 말과 비유적 표현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고대인은 유령에서 벗어나기에 너무 열심이었으므로, 그 유령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랬을만한 모든 것을 그 값으로 바쳤다. 유령이 아내와 중을 원한다고 여겼으며; 어떤 부자 미개인은, 자기가 죽을 때 한 명 이상의 노예 아내를 산채로 매장하도록 요구했다. 나중에는 과부가 남편 무덤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아이가 죽으면, 어른 유령이 자녀 유령과 동행하며 보살피도록, 어머니, 숙모, 또는 할머니가 목 졸려 죽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자살하는 자는 대개 자발적이었으며; 정말로, 그들이 관습을 위반하고 살았더라도, 원시인이 인생에서 누렸던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쁨마저, 유령이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박탈했을 것이다.

죽장이 죽으면 여러 신하를 딸려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죽여서 유령나라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보르네오인**은 여전히 안내원 반려자를 지명하고 있으며; 노예 한 사람을 죽여서, 죽은 주인과 함께 유령 여행에 동반하게 한다. 살인 당한 유령이 살인한 자의 유령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믿었으며; 이런 관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사냥을 하도록 만들었다.

유령이 음식 냄새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장례식 잔치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한때 보편적이었다. 음식 먹기 전 기도에 해당하는 원시 방법은, 영을 달래는 목적으로, 마술적 문구를 중얼거리면서 음식 한 조각을 불에 던지는 것이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살았을 때 소유했던 도구와 무기의 유령을 이용한다고 생각됐다. 물건을 깨뜨림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유령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해 떠나가라고 그 유령을 풀어줬다. 또한 재물을 태우거나 묻음으로써 제물이 되게 했다. 고대에는 장례식에 낭비가 심했다. 후대의 종족들은,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실제 물건이나 사람 대신 그림으로 바꿔치기했다. 재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을 친족 상속이 대체했을 때 문명이 크게 진보했다. **이로쿼이 인디언**은 장례식 낭비를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 보존으로 북부 지역 홍색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됐다. 현대인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습이 확고하고, 현세적인 많은 재물이 여전히 장례 제례식과 사망 예식에 소모된다.

3. 조상 숭배

유령 종파가 진척됨에 따라서 조상 숭배가 필

this way the languages were constantly impoverished. This eventually produced a multiplication of symbolic speech and figurative expression, such as “the name or day one never mentions.”

87:2.7 (960.1) The ancients were so anxious to get rid of a ghost that they offered it everything which might have been desired during life. Ghosts wanted wives and servants; a well-to-do savage expected that at least one slave wife would be buried alive at his death. It later became the custom for a widow to commit suicide on her husband's grave. When a child died, the mother, aunt, or grandmother was often strangled in order that an adult ghost might accompany and care for the child ghost. And those who thus gave up their lives usually did so willingly; indeed, had they lived in violation of custom, their fear of ghost wrath would have denuded life of such few pleasures as the primitives enjoyed.

87:2.8 (960.2) It was customary to dispatch a large number of subjects to accompany a dead chief; slaves were killed when their master died that they might serve him in ghostland. The Borneans still provide a courier companion; a slave is speared to death to make the ghost journey with his deceased master. Ghosts of murdered persons were believed to be delighted to have the ghosts of their murderers as slaves; this notion motivated men to head hunting.

87:2.9 (960.3) Ghosts supposedly enjoyed the smell of food; food offerings at funeral feasts were once universal. The primitive method of saying grace was, before eating, to throw a bit of food into the fire for the purpose of appeasing the spirits, while mumbling a magic formula.

87:2.10 (960.4) The dead were supposed to use the ghosts of the tools and weapons that were theirs in life. To break an article was to “kill it,” thus releasing its ghost to pass on for service in ghostland. Property sacrifices were also made by burning or burying. Ancient funeral wastes were enormous. Later races made paper models and substituted drawings for real objects and persons in these death sacrifices. It was a great advance in civilization when the inheritance of kin replaced the burning and burying of property. The Iroquois Indians made many reforms in funeral waste. And this conservation of property enabled them to become the most powerful of the northern red men. Modern man is not supposed to fear ghosts, but custom is strong, and much terrestrial wealth is still consumed on funeral rituals and death ceremonies.

3. ANCESTOR WORSHIP

87:3.1 (960.5) The advancing ghost cult made

연적으로 발생했는데, 일반 유령 및 더 높은 영들, 즉 진화하는 신{神}들 사이를 조상 숭배가 연결시키게 됐기 때문이다. 초기의 신들은 단순히 칭송받는 고인{故人}에 지나지 않았다.

조상 숭배는 원래 숭배라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믿음은 유령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널리 퍼뜨리는 데 확실히 기여했다. 초기 조상_유령 종파 사람들은, 하품할 때 해로운 유령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양자를 삼는 관습은, 죽은 후에 그 혼이 평안하고 잘 가기 위해서 누군가 확실히 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미개인은 동료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죽은 후 자기 유령의 안전한 행동을 위한 계획에 여가 시간을 투자했다.

대부분의 부족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온갖_유령에 대한 축제를 시행했다. **로마인**은 열두 가지의 유령 축제를 열었고, 매 년 예식을 치렀다.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이런 고대 종파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예식에 바쳤다. 어떤 **로마** 황제는 축제에 몰두하는 날을 한 해에 135일로 줄임으로써 이 풍습을 개선하려고 했다.

유령 종파는 계속 진화했다. 유령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높은 국면의 실존으로 옮겨간다고 상상되자, 그 종파는 결국 영들, 그리고 심지어 신들에 대한 숭배로 그렇게 발전했다. 그러나 더 진보된 영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에는 상관없이, 모든 부족과 종족이 한때 유령을 믿었다.

4.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이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유령들은 다 같은 부류라는 옛 믿음을 여러 부족이 고수했다. 그들은, 유령이 즐거울 때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유령이 화날 때 불운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종파가 확장되자, 더 고등{高等} 유형의 영, 즉 어떤 개인 인간과도 명확하게 동일시되지 않는 영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이들은 유령나라의 영역에서 진보하여, 더 높은 영{靈}나라로 졸업한 유령 또는 찬미 받는 유령이었다.

두 종류의 영{靈} 유령 개념은, 세계 전역에서 느리지만 확실히 진보했다. 이런 새로운 이중적 심령술은 부족에서 부족으로 퍼질 필요가 없었으며; 세계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확장하는 진화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 관념의 힘은, 그 관념의 실체 또는 정당성이 아니라, 그 관념의 **생생함과** 보편성을 신속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더 나중에 사람의 상상력은, 초자연적인 선한

ancestor worship inevitable since it became the connecting link between common ghosts and the higher spirits, the evolving gods. The early gods were simply glorified departed humans.

87:3.2 (960.6) Ancestor worship was originally more of a fear than a worship, but such beliefs did definitely contribute to the further spread of ghost fear and worship. Devotees of the early ancestor-ghost cults even feared to yawn lest a malignant ghost enter their bodies at such a time.

87:3.3 (960.7) The custom of adopting children was to make sure that someone would provide offerings after death for the peace and progress of the soul. The savage lived in fear of the ghosts of his fellows and spent his spare time planning for the safe conduct of his own ghost after death.

87:3.4 (960.8) Most tribes instituted an all-souls' feast at least once a year. The Romans had twelve ghost feasts and accompanying ceremonies each year. Half the days of the year were dedicated to some sort of ceremony associated with these ancient cults. One Roman emperor tried to reform these practices by reducing the number of feast days to 135 a year.

87:3.5 (961.1) The ghost cult was in continuous evolution. As ghosts were envisioned as passing from the incomplete to the higher phase of existence, so did the cult eventually progress to the worship of spirits, and even gods. But regardless of varying beliefs in more advanced spirits, all tribes and races once believed in ghosts.

4. GOOD AND BAD SPIRIT GHOSTS

87:4.1 (961.2) Ghost fear was the fountainhead of all world religion; and for ages many tribes clung to the old belief in one class of ghosts. They taught that man had good luck when the ghost was pleased, bad luck when he was angered.

87:4.2 (961.3) As the cult of ghost fear expanded, there came about the recognition of higher types of spirits, spirits not definitely identifiable with any individual human. They were graduate or glorified ghosts who had progressed beyond the domain of ghostland to the higher realms of spiritland.

87:4.3 (961.4) The notion of two kinds of spirit ghosts made slow but sure progress throughout the world. This new dual spiritism did not have to spread from tribe to tribe; it sprang up independently all over the world. In influencing the expanding evolutionary mind, the power of an idea lies not in its reality or reasonableness but rather in its *vividness* and the universality of its ready and simple application.

87:4.4 (961.5) Still later the imagination of man

매개체와 악한 매개체라는 개념을 구상했는데; 어떤 유령은 선한 영 수준으로 결코 진화하지 못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일 영 체계는 점차 이중 영 체계로 진화했는데, 이 세상 직무를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한다는 새 개념이었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을 각각 통제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부류 중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쪽이 더 활동적이고 많다고 믿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교리가 최종적으로 성숙되자, 그것은 모든 종교 신념에 가장 널리 퍼지고 계속 유지됐다. 이 이론은 위대한 종교 철학의 진보를 의미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운과 불운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적 존재를 믿게 했기 때문이다. 영은 선한 쪽이나 악한 쪽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가장 원시적인 종교의 단일 영 체계에서 초기의 유령들이 완전히 번덕스럽다고 상상했듯이, 이 영들도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마침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적 세력들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 및 인간 철학의 확장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의 발견 가운데 하나였다.

어쨌든, 진화 종교는 이중{二重} 심령술 개념을 얻기 위해서 심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다. 인간의 초기 철학은, 오직 두 종류의 영,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을 가정{假定}함으로써만, 영의 불변성과 현세의 행운의 변화를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수의 변화무쌍함을, 변하지 않는 초인간 세력의 개념과 조화시킬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교리는 그 후로 계속, 종교가들이 시공우주의 통일성을 깨닫기 힘들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신{神}들은 대개 암흑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이 관념이 사람의 원시 정신 속에 뿌리 내리게 됐을 때, 해로운 영 또는 부조화의 영이 어느 세계에도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은 **캘리개스 차**의 반역 이후부터 전개됐고, 오직 **성령강림절**까지만 지속됐다. 선과 악이 시공우주에서 대등하다는 개념은, 심지어 20세기에, 인간 철학에서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종교 대부분은, 유령 종파가 생겨나던 시절의, 없어진지 오래된 이런 문화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5. 진보하는 유령 종파

원시인은, 영과 유령이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지만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봤으며; 사람에게 여러 의무가 있지만 권리는 없는 것으로 영들이

envisioned the concept of both good and bad supernatural agencies; some ghosts never evolved to the level of good spirits. The early monospiritism of ghost fear was gradually evolving into a dual spiritism, a new concept of the invisible control of earthly affairs. At last good luck and bad luck were pictured as having their respective controllers. And of the two classes, the group that brought bad luck were believed to be the more active and numerous.

87:4.5 (961.6) When the doctrine of good and bad spirits finally matured, it became the most widespread and persistent of all religious beliefs. This dualism represented a great religio-philosophic advance because it enabled man to account for both good luck and bad luck while at the same time believing in supermortal beings who were to some extent consistent in their behavior. The spirits could be counted on to be either good or bad; they were not thought of as being completely temperamental as the early ghosts of the monospiritism of most primitive religions had been conceived to be. Man was at last able to conceive of supermortal forces that were consistent in behavior, and this was one of the most momentous discoveries of truth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and in the expansion of human philosophy.

87:4.6 (961.7) Evolutionary religion has, however, paid a terrible price for the concept of dual spiritism. Man's early philosophy was able to reconcile spirit constancy with the vicissitudes of temporal fortune only by postulating two kinds of spirits, one good and the other bad. And while this belief did enable man to reconcile the variables of chance with a concept of unchanging supermortal forces, this doctrine has ever since made it difficult for religionists to conceive of cosmic unity. The gods of evolutionary religion have generally been opposed by the forces of darkness.

87:4.7 (962.1) The tragedy of all this lies in the fact that, when these ideas were taking root in the primitive mind of man, there really were no bad or disharmonious spirits in all the world.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did not develop until after the Caligastic rebellion and only persisted until Pentecost. The concept of good and evil as cosmic co-ordinates is,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very much alive in human philosophy; most of the world's religions still carry this cultural birthmark of the long-gone days of the emerging ghost cults.

5. THE ADVANCING GHOST CULT

87:5.1 (962.2) Primitive man viewed the spirits and ghosts as having almost unlimited rights but no duties; the spirits were thought to regard man as having manifold duties but no rights. The spirits

여긴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실패할 때 영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믿었다. 유령이 인간의 관심사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계속 헌신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인류의 일반적 믿음이었고, 아주 작은 불운도 유령의 활동 탓으로 돌렸다. 초기 인간은, 신들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공경을 빠뜨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알려진 모든 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철저히 안전하게 하려고,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다시 한 번 바쳤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유령 종파 다음에는, 더 진보되고 비교적 복잡한 영 유령 종파의 풍습이 생겨났는데, 인간의 원시적 상상 속에서 상류의 영들이 진화함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었다. 종교 예식절차는 영의 진화와 진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확대된 종파는, 초자연 존재들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자아 유지 기술, 즉 영 환경에 대한 자아의 조율이었음을 뿐이다. 산업 조직체와 군사 조직체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조율이었다. 그리고 결혼이 남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듯이, 종교 조직체는 고등{高等} 영 세력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종교는 사람이 우연한 신비에 관한 환상에 조율하는 것을 나타낸다. 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숭배는, 불운에 대한 대비책, 즉 행운을 위한 방책으로서 채택됐다.

미개인은, 선한 영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쾌한 기분을 유지시켜야 하는 존재는 악한 유령과 영이었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호의를 가진 영보다 심술궂은 유령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인간의 성공이 특히 악한 영의 질투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보복하는 방법은, 인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흉안{凶眼}** 기법으로, 되받아 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을 피하는 것과 상관되는 국면의 종파는 악한 눈의 음모와 많이 관계됐다. 악한 눈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에 퍼졌다. 아름다운 여자는 흉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베일로 가렸으며;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은 많은 여자가 이 풍습을 택했다. 악한 영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일이 드물었고, 초기 기도문에는 “흉안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청원이 항상 포함됐다.

코란에는, 한 장{章} 전체가 흉안과 마법 주문{呪文}에 관계되는 글로 채워져 있으며, **유대인**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 남근{男根}을 숭배하는 종파는 모두 흉안에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형성됐다.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물은 생식기라고 여겼다. 흉안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감화를 주는 것, 즉 어머니의 영향에 관한 첫 미신이 생기게 했고, 그 종파는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were believed to look down upon man as constantly failing in the discharge of his spiritual duties. It was the general belief of mankind that ghosts levied a continuous tribute of service as the price of noninterference in human affairs, and the least mischance was laid to ghost activities. Early humans were so afraid they might overlook some honor due the gods that, after they had sacrificed to all known spirits, they did another turn to the “unknown gods,” just to be thoroughly safe.

87:5.2 (962.3) And now the simple ghost cult is followed by the practices of the more advanced and relatively complex spirit-ghost cult, the service and worship of the higher spirits as they evolved in man's primitive imagination. Religious ceremonial must keep pace with spirit evolution and progress. The expanded cult was but the art of self-maintenance practiced in relation to belief in supernatural beings, self-adjustment to spirit environment. Industrial and military organizations were adjustments to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as marriage arose to meet the demands of bisexuality, so did religious organization evolve in response to the belief in higher spirit forces and spiritual beings. Religion represents man's adjustment to his illusions of the mystery of chance. Spirit fear and subsequent worship were adopted as insurance against misfortune, as prosperity policies.

87:5.3 (962.4) The savage visualizes the good spirits as going about their business, requiring little from human beings. It is the bad ghosts and spirits who must be kept in good humor. Accordingly, primitive peoples paid more attention to their malevolent ghosts than to their benign spirits.

87:5.4 (962.5) Human prosperity was supposed to be especially provocative of the envy of evil spirits, and their method of retaliation was to strike back through a human agency and by the technique of the *evil eye*. That phase of the cult which had to do with spirit avoidance was much concerned with the machinations of the evil eye. The fear of it became almost world-wide. Pretty women were veiled to protect them from the evil eye; subsequently many women who desired to be considered beautiful adopted this practice. Because of this fear of bad spirits, children were seldom allowed out after dark, and the early prayers always included the petition, “deliver us from the evil eye.”

87:5.5 (962.6) The Koran contains a whole chapter devoted to the evil eye and magic spells, and the Jews fully believed in them. The whole phallic cult grew up as a defense against the evil eye. The organs of reproduction were thought to be the only fetish which could render it powerless. The evil eye gave origin to the first superstitions respecting prenatal marking of children, maternal impressions, and the cult was at one time well-

질투심은 인간의 뿌리 깊은 특징이며; 따라서 원시인은 질투심을 초기 신들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람은 유령을 속이는 풍습을 한때 가졌으므로, 곧 영들도 속이기 시작했다. “영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흉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하리라”고 했다. 그래서 초기의 겸손은, 자기를 낮춤이 아니라, 질투하는 영을 물리치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행복을 영이 질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행운을 가져오거나 귀하게 여기는 물건 또는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퍼붓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에 관해서 칭찬하는 말을 경시하는 관습이 이런 식으로 기원했으며; 결국 예의바른 겸손, 사양, 및 공손함으로 발전했다. 동일한 동기에 따라서, 얼굴을 추하게 보이기가 유행했다. 아름다움은 영의 질투심을 자극했으며; 죄 많은 인간의 교만을 예시했다. 미개인은 추한 이름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종파의 이런 특색은, 예술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고, 세상을 오랫동안 어둡침침하고 추하게 만들었다.

영 종파의 지배하에서, 인생은 기껏해야 하나의 도박, 즉 영에게 통제받은 결과에 불과했다. 영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노력, 근면, 또는 재주가 인간의 미래와 아무 상관없었다. 영을 달래기 위한 예식이 무거운 부담을 줬는데, 인생을 진저리나게 만들었고 사실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면서, 여러 인종이 이런 초월 유령에 관한 교리를 개선시키려고 애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예언, 신의 계시, 또는 표적이라는 수단으로 검사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메시지를 점(占), 예언, 마술, 괴로운 체험, 그리고 점성술이 해석했다. 종파 전체가, 이런 변장한 너물을 통해서 영을 달래고, 만족시키고, 매수(賈收)하도록 고안된 책략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고 확장된 세계 철학이 자라났고, 다음 것들로 이뤄졌다:

1. 의무 --영들을 기분 좋게, 적어도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들.

2. 권리 --유익이 되도록 영들을 능동적으로 설득하려고 고안한, 온당한 행위와 예식.

3. 진리 --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영들에 대한 태도,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고대인이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불운을 피하기 원했다. 점(占)은 재난을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nigh universal.

87:5.6 (963.1) Envy is a deep-seated human trait; therefore did primitive man ascribe it to his early gods. And since man had once practiced deception upon the ghosts, he soon began to deceive the spirits. Said he, “If the spirits are jealous of our beauty and prosperity, we will disfigure ourselves and speak lightly of our success.” Early humility was not, therefore, debasement of ego but rather an attempt to foil and deceive the envious spirits.

87:5.7 (963.2) The method adopted to prevent the spirits from becoming jealous of human prosperity was to heap vituperation upon some lucky or much loved thing or person. The custom of depreciating complimentary remarks regarding oneself or family had its origin in this way, and it eventually evolved into civilized modesty, restraint, and courtesy. In keeping with the same motive, it became the fashion to look ugly. Beauty aroused the envy of spirits; it betokened sinful human pride. The savage sought for an ugly name. This feature of the cult was a great handicap to the advancement of art, and it long kept the world somber and ugly.

87:5.8 (963.3) Under the spirit cult, life was at best a gamble, the result of spirit control. One's future was not the result of effort, industry, or talent except as they might be utilized to influence the spirits. The ceremonies of spirit propitiation constituted a heavy burden, rendering life tedious and virtually unendurable. From age to age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race after race has sought to improve this superghost doctrine, but no generation has ever yet dared to wholly reject it.

87:5.9 (963.4) The intention and will of the spirits were studied by means of omens, oracles, and signs. And these spirit messages were interpreted by divination, soothsaying, magic, ordeals, and astrology. The whole cult was a scheme designed to placate, satisfy, and buy off the spirits through this disguised bribery.

87:5.10 (963.5) And thus there grew up a new and expanded world philosophy consisting in:

87:5.11 (963.6) 1. *Duty* — those things which must be done to keep the spirits favorably disposed, at least neutral.

87:5.12 (963.7) 2. *Right* — the correct conduct and ceremonies designed to win the spirits actively to one's interests.

87:5.13 (963.8) 3. *Truth* —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 toward, spirits, and hence toward life and death.

87:5.14 (963.9) It was not merely out of curiosity that the ancients sought to know the future; they wanted to dodge ill luck. Divination was simply an attempt to avoid trouble. During these times,

이 시절에는, 꿈이 예언으로 간주됐고, 한편 일상적이 아닌 모든 것이 어떤 징조로 고려됐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문명화된 인종들도, 징후, 표시, 그리고 발전하는 옛 유령 종파의 다른 미신적 관재들에 대한 믿음으로 시달린다. 그토록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화 생애 계단을 올라가는 데 사용하던 이런 방법을,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기할 것이다.

6. 강압과 쫓아내기

사람들이 유령만 믿었을 때에는, 종교 제례식이 더 개인적이고 덜 조직돼 있었지만, 더 높은 영들을 인식함으로 인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영적 방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이 시도가, 그 영에 대항하는 방어책을 형성하도록 직접 이끌었다. 사람은, 현세의 생애에서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들 앞에서, 정말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고, 그의 열등감이, 어떤 보상하는 조정 방법, 즉 사람 대 시공우주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불평등을 없애주는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었다.

그 종파의 초기 시절에, 유령의 작용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의 노력은, 달래기, 즉 뇌물로 불운을 면하려는 시도에 국한됐다. 유령 종파의 진화가, 악한 영뿐 아니라 선한 영도 있다는 개념으로 진보되자, 이런 예식은 더 긍정적인 성질의 시도, 즉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완전히 부정적인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됐고, 또한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됐으며; 곧 책략을 발명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영의 협동을 강요할 수 있게 됐다. 종교인은, 자신이 고안하는 영 환상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지 않게 됐으며; 미개인은, 영 활동을 억제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첫 방어 노력이 유령을 대항하도록 인도했다. 시대가 지나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영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멀리 쫓기 위해서 많은 기법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1. 시신의 머리를 잘라내고 무덤 속에 묶어둠.
2. 죽은 사람의 집에 돌을 던짐.
3. 시체의 다리를 제거하거나 부러뜨림.
4. 돌 밑에 묻음, 현대 묘비의 기원 가운데 하나.
5. 화장{火葬}, 유령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발명됨.

dreams were regarded as prophetic, while everything out of the ordinary was considered an omen. And even today the civilized races are cursed with the belief in signs, tokens, and other superstitious remnants of the advancing ghost cult of old. Slow, very slow, is man to abandon those methods whereby he so gradually and painfully ascended the evolutionary scale of life.

6. COERCION AND EXORCISM

87:6.1 (963.10) When men believed in ghosts only, religious ritual was more personal, less organized, but the recognition of higher spirits necessitated the employment of “higher spiritual methods” in dealing with them. This attempt to improve upon, and to elaborate, the technique of spirit propitiation led directly to the creation of defenses against the spirits. Man felt helpless indeed before the uncontrollable forces operating in terrestrial life, and his feeling of inferiority drove him to attempt to find some compensating adjustment, some technique for evening the odds in the one-sided struggle of man versus the cosmos.

87:6.2 (964.1) In the early days of the cult, man's efforts to influence ghost action were confined to propitiation, attempts by bribery to buy off ill luck. As the evolution of the ghost cult progressed to the concept of good as well as bad spirits, these ceremonies turned toward attempts of a more positive nature, efforts to win good luck. Man's religion no longer was completely negativistic, nor did he stop with the effort to win good luck; he shortly began to devise schemes whereby he could compel spirit co-operation. No longer does the religionist stand defenseless before the unceasing demands of the spirit phantasms of his own devising; the savage is beginning to invent weapons wherewith he may coerce spirit action and compel spirit assistance.

87:6.3 (964.2) Man's first efforts at defense were directed against the ghosts. As the ages passed, the living began to devise methods of resisting the dead. Many techniques were developed for frightening ghosts and driving them away, among which may be cited the following:

- 87:6.4 (964.3) 1. Cutting off the head and tying up the body in the grave.
- 87:6.5 (964.4) 2. Stoning the death house.
- 87:6.6 (964.5) 3. Castration or breaking the legs of the corpse.
- 87:6.7 (964.6) 4. Burying under stones, one origin of the modern tombstone.
- 87:6.8 (964.7) 5. Cremation, a later-day invention to prevent ghost trouble.

6. 시체를 바다에 던짐.

7. 시체를 방치해서, 야생 동물이 뜯어먹게 함.

유령은 시끄러운 소리에 당황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했으며;고함, 종, 그리고 북 소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내쫓는다고 생각했으며;이런 고대의 방법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밤샘”을 하는 곳에서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영을 내쫓기 위해서, 악취를 뿜는 혼합물이 이용됐다. 영들의 무시무시한 형상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다. 영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개가 감지할 수 있고, 짖어댐으로써 경고한다고 믿었으며;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수탉이 운다고 믿었다. 수탉형상을 풍향기에 이용하는 것은 이런 미신의 잔재다.

유령을 대항하는 데는 물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생각됐다. 성수(聖水)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우수했는데, 사제들이 발을 씻은 물이었다. 불과 물은 모두 유령에게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믿었다. 로마인은 물을 갖고 시체 주위를 세 번 돌았으며;20세기에는 시체 위에 성수를 뿌리고, 묘지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의 제례식으로 남아있다. 세례는 물로 하는 후대의 제례식 가운데 한 부분이었으며;원시 시대의 목욕은 종교 예식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목욕이 위생 습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은 유령을 강압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종교 제례식 및 다른 풍습을 통해서, 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애썼다. 쫓아내기는, 어떤 영을 택해서 다른 영을 통제하거나 추방시키려는 것이었고, 이 술책은 유령과 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됐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라는 이중_심령술 개념은, 한 매개체와 다른 매개체를 싸움 불이도록 시도하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했는데, 어떤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강한 영이 열등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시의 저주(呪呪)는, 낮은 계층의 영을 겁주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강압하는 관습이었다. 나중에 이런 관습은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확장됐다.

더 오래된 사회관행으로 돌아감으로써, 영들과 반신반인(半神半人) 존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래 지속됐다. 현대인도 똑같은 과정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일상적 언어에서는 평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지난간 세대의 옛 문체, 즉 소위 엄숙한 문체라 불리는 형태를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이 교리는 또한, 신전 매음 행위 같은, 성교의 성질을 지닌 많은 종교_예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설명해 준다. 원시적 관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으로 간주됐다. 그리고 단순한 정신을 소유한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실행은, 현대인이 난잡하

87:6.9 (964.8) 6. Casting the body into the sea.

87:6.10 (964.9) 7. Exposure of the body to be eaten by wild animals.

87:6.11 (964.10) Ghosts were supposed to be disturbed and frightened by noise; shouting, bells, and drums drove them away from the living; and these ancient methods are still in vogue at “wakes” for the dead. Foul-smelling concoctions were utilized to banish unwelcome spirits. Hideous images of the spirits were constructed so that they would flee in haste when they beheld themselves. It was believed that dogs could detect the approach of ghosts, and that they gave warning by howling; that cocks would crow when they were near. The use of a cock as a weather vane is in perpetuation of this superstition.

87:6.12 (964.11) Water was regarded as the best protection against ghosts. Holy water was superior to all other forms, water in which the priests had washed their feet. Both fire and water were believed to constitute impassable barriers to ghosts. The Romans carried water three times around the corps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body is sprinkled with holy water, and hand washing at the cemetery is still a Jewish ritual. Baptism was a feature of the later water ritual; primitive bathing was a religious ceremony. Only in recent times has bathing become a sanitary practice.

87:6.13 (964.12) But man did not stop with ghost coercion; through religious ritual and other practices he was soon attempting to compel spirit action. Exorcism was the employment of one spirit to control or banish another, and these tactics were also utilized for frightening ghosts and spirits. The dual-spiritism concept of good and bad forces offered man ample opportunity to attempt to pit one agency against another, for, if a powerful man could vanquish a weaker one, then certainly a strong spirit could dominate an inferior ghost. Primitive cursing was a coercive practice designed to overawe minor spirits. Later this custom expanded into the pronouncing of curses upon enemies.

87:6.14 (965.1) It was long believed that by reverting to the usages of the more ancient mores the spirits and demigods could be forced into desirable action. Modern man is guilty of the same procedure. You address one another in common, everyday language, but when you engage in prayer, you resort to the older style of another generation, the so-called solemn style.

87:6.15 (965.2) This doctrine also explains many religious-ritual reversions of a sex nature, such as temple prostitution. These reversions to primitive customs were considered sure guards against many calamities. And with these simple-minded peoples all such performances were entirely free

다고 부르는 형태와는 전혀 달랐다.

그 다음에는 제례식에서 맹세하는 풍습이 생겼고, 그 뒤를 이어 종교의 서약과 신성시되는 맹세가 곧 시행됐다. 이런 맹세 대부분은 고행과 자상{自傷} 행위를 동반했으며;나중에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됐다. 그 후에는 금욕이 틀림없는 강압수단으로 여겨졌으며;성욕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특히 그랬다. 그리하여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 풍습에서 단호한 내핍생활을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마음 내키지 않는 영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고난과 궁핍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반응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제례식으로, 고행과 금욕이 효험 있다고 믿었다.

현대인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영들을 강압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여전히 **신격**과 흥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현대인은 여전히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겹쳐 보이고, 침을 뱉으면서 어떤 진부한 말을 하는데;한때 마술적 처방이었다.

7. 종파체계의 본질

종파 유형의 사회 조직체가 계속 유지됐는데, 도덕적 정서와 종교적 충성을 보존하고 자극하는 상징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종파는 “오래 된 가족들”의 전통으로부터 생겨났고, 확립된 제도로서 계속 존재했으며;모든 가족마다 어떤 종류의 종파를 지니고 있다. 영감을 주는 모든 이상{理想}은 영존하는 어떤 상징체계를 붙잡으려고 하며--즉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고 실현을 증대시키는 어떤 문화적 명시 기법을 추구하며--, 종파는 감정을 조성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이런 목적을 성취한다.

문명의 여명기부터, 사회의 문화 또는 종교적 진보에서 모든 매력적인 활동이, 제례식, 즉 상징적 예식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이 의식{儀式}이 무의식적 성장을 이룩하면 할수록,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종파가 정서를 보존하고 감정을 만족시켰지만, 사회의 개조와 영적 진보에는 항상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종파가 사회 진보를 항상 방해했음에도, 도덕 표준과 영적 이상을 믿는 매우 많은 현대인이 어떤 적당한 상징도--곧 서로 밀어줄 어떤 종파도, 소속될만한 어떤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종교의 종파는 조종될 수 없으며;자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두 집단이든지, 그 제례식이 권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 한, 동일할 수 없다.

초기 **그리스도교** 종파는, 그때까지 생각해 내거나 고안해 냈던 어떤 제례식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며 영구적이었지만, 그 가치 대부분은 너무 많은 원래의 근본 교의{教義}가 파괴됨으로써, 과학 시대 동안 훼손돼 왔다. **그리스도교** 종파

from what modern man would term promiscuity.

87:6.16 (965.3) Next came the practice of ritual vows, soon to be followed by religious pledges and sacred oaths. Most of these oaths were accompanied by self-torture and self-mutilation; later on, by fasting and prayer. Self-denial was subsequently looked upon as being a sure coercive;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he matter of sex suppression. And so primitive man early developed a decided austerity in his religious practices, a belief in the efficacy of self-torture and self-denial as rituals capable of coercing the unwilling spirits to react favorably toward all such suffering and deprivation.

87:6.17 (965.4) Modern man no longer attempts openly to coerce the spirits, though he still evinces a disposition to bargain with Deity. And he still swears, knocks on wood, crosses his fingers, and follows expectoration with some trite phrase; once it was a magical formula.

7. NATURE OF CULTISM

87:7.1 (965.5) The cult type of social organization persisted because it provided a symbolism for the preservation and stimulation of moral sentiments and religious loyalties. The cult grew out of the traditions of “old families” and was perpetuated as an established institution; all families have a cult of some sort. Every inspiring ideal grasps for some perpetuating symbolism — seeks some technique for cultural manifestation which will insure survival and augment realization — and the cult achieves this end by fostering and gratifying emotion.

87:7.2 (965.6) From the dawn of civilization every appealing movement in social culture or religious advancement has developed a ritual, a symbolic ceremonial. The more this ritual has been an unconscious growth, the stronger it has gripped its devotees. The cult preserved sentiment and satisfied emotion, but it has always been the greatest obstacle to social reconstruction and spiritual progress.

87:7.3 (965.7) Notwithstanding that the cult has always retarded social progress, it is regrettable that so many modern believers in moral standards and spiritual ideals have no adequate symbolism — no cult of mutual support — nothing to *belong* to. But a religious cult cannot be manufactured; it must grow. And those of no two groups will be identical unless their rituals are arbitrarily standardized by authority.

87:7.4 (965.8) The early Christian cult was the most effective, appealing, and enduring of any ritual ever conceived or devised, but much of its value has been destroyed in a scientific age by the destruction of so many of its original underlying

는 많은 근본 개념을 상실함으로써 활력을 잃었다.

과거에는, 종파가 신축성이 있을 때, 즉 상징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을 때, 진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됐다. 풍족한 진리와 조정할 수 있는 종파가, 사회 진보의 신축성을 장려했다. 무의미한 종파는, 철학을 대체하고 이성(理性)을 노에 삼으려고 애쓸 때, 종교를 타락시키는 반면; 참된 종파는 성장한다.

결과적 불리한 조건에 상관없이, 진리가 새롭게 제시될 때마다 새로운 종파가 생겨났으며, 심지어 **예수**의 종교를 수정해서 진술하는 것도, 새롭고 적절한 상징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인은 자신의 새롭고 확장하는 개념, 이상, 및 충성심에 맞는 어떤 상징체계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향상된 상징은 반드시, 종교 생활, 즉 영적 체험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류 문명의 고등 상징체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야 하며,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강력한 이상(理想)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옛 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새 종파는, 적용된 사랑에서 발생해야 한다. 새 종파는, 옛 종파처럼, 정서를 조성하고, 감정을 만족시키며, 충성심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이상(以上)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고, 시공우주의 의미를 증진시키며, 도덕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고, 높은 유형의 개인 종교 생활을 고무시켜야 한다. 새 종파는 현세와 영원한 세계 양쪽에 해당되는--곧 사회적이고 영적인--삶의 최고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종파도, **가정(家庭)**의 생물학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사회 문명의 진보와 개인의 영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없다. 계속 살아남는 종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영구한 것을 상징해야 하며;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변질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찬미해야 한다. 그 종파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를 강화시키며, 정말로 고귀한 좋은 가치 기준을 찬미해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 만족스런 상징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대인이 집단적으로는 과학적 태도를 고집하고 미신을 피하며 무지함을 떨치려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모두 신비를 갈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어떤 멋진 신비를 담고, 획득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 한, 어떤 종파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징체계는 집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 있어야 한다. 어떤 유용한 상징체계 형태든지, 개인이 자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그 종파가 정지된 상태 대신 역동적 상태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정말로 훌륭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enets. The Christian cult has been devitalized by the loss of many fundamental ideas.

87.7.5 (965.9) In the past, truth has grown rapidly and expanded freely when the cult has been elastic, the symbolism expansile. Abundant truth and an adjustable cult have favored rapidity of social progression. A meaningless cult vitiates religion when it attempts to supplant philosophy and to enslave reason; a genuine cult grows.

87.7.6 (966.1) Regardless of the drawbacks and handicaps, every new revelation of truth has given rise to a new cult, and even the restatement of the religion of Jesus must develop a new and appropriate symbolism. Modern man must find some adequate symbolism for his new and expanding ideas, ideals, and loyalties. This enhanced symbol must arise out of religious living, spiritual experience. And this higher symbolism of a higher civilization must be predicated on the concept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be pregnant with the mighty ideal of the brotherhood of man.

87.7.7 (966.2) The old cults were too egocentric; the new must be the outgrowth of applied love. The new cult must, like the old, foster sentiment, satisfy emotion, and promote loyalty; but it must do more: It must facilitate spiritual progress, enhance cosmic meanings, augment moral values, encourage social development, and stimulate a high type of personal religious living. The new cult must provide supreme goals of living which are both temporal and eternal — social and spiritual.

87.7.8 (966.3) No cult can endure and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social civilization and individual spiritual attainment unless it is based on the biologic, sociologic, and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home*. A surviving cult must symbolize that which is permanent in the presence of unceasing change; it must glorify that which unifies the stream of ever-changing social metamorphosis. It must recognize true meanings, exalt beautiful relations, and glorify the good values of real nobility.

87.7.9 (966.4) But the great difficulty of finding a new and satisfying symbolism is because modern men, as a group, adhere to the scientific attitude, eschew superstition, and abhor ignorance, while as individuals they all crave mystery and venerate the unknown. No cult can survive unless it embodies some masterful mystery and conceals some worthwhile unattainable. Again, the new symbolism must not only be significant for the group but also meaningful to the individual. The forms of any serviceable symbolism must be those which the individual can carry out on his own initiative, and which he can also enjoy with his fellows. If the new cult could only be dynamic instead of static, it might really contribute something worth while to the progress of mankind, both temporal and spiritual.

그러나 종파는--제례식, 표어{標語}, 또는 목표 같은 상징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요청, 즉 충성심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모든 종교는 반드시 훌륭한 상징체계를 발전시키며, 그 신봉자들은 그런 제례식이 진부한 예식절차로 구체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데, 진부한 예식절차는 사람을 속박하고 추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며, 모든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뿐이다. 어떤 종파도, 도덕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종파는 뼈대 구조물이요, 몸소 영적 체험을 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몸이-- 곧 참된 종교가-- 그 주변에서 자란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

87:7.10 (966.5) But a cult — a symbolism of rituals, slogans, or goals — will not function if it is too complex. And there must be the demand for devotion, the response of loyalty. Every effective religion unerringly develops a worthy symbolism, and its devotees would do well to prevent the crystallization of such a ritual into cramping, deforming, and stifling stereotyped ceremonials which can only handicap and retard all social, moral, and spiritual progress. No cult can survive if it retards moral growth and fails to foster spiritual progress. The cult is the skeletal structure around which grows the living and dynamic body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 true religion.

87:7.11 (966.6)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8편. 주물, 마법, 요술

⇨ 087

유란시아 책

08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88편
주물, 마법, 요술

섹션

소개

1. 주물에 대한 믿음
2. 주물의 진화
3. 토템숭배
4. 마술
5. 마술적인 주문
6. 마술의 실행

소개

영{靈}이 무생물이나 동물 또는 인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주 오래되고 존중받을만한 믿음인데, 종교의 진화가 시작될 때부터 널리 퍼졌다. 영을 지닌다는 이런 교리는 주물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미개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물{呪物}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속에 거주하는 영을 매우 논리적으로 숭배하고 공경한다.

처음에는, 주물 속에 있는 영은 죽은 사람의 유령일 것이라고 믿었으며; 나중에는, 더 높은 영이 주물 속에 거주한다고 상상했다. 그리하여 주물숭배 종파는 결국, 유령, 혼, 영,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는 원시 관념 전체와 합쳐졌다.

1. 주물에 대한 믿음

원시인은 색다른 모든 것을 항상 주물{呪物}로 여기려고 했으며; 따라서 많은 주물이 우연히 생겨났다.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무엇인가 발생해서, 그 병이 낫는다. 여러 약품에 대한 평판, 그리고 우연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꿈과 관련된 대상물도 마찬가지로 주물

PAPER 88

FETISHES, CHARMS, AND MAGIC

SECTIONS

Introduction

1. Belief in Fetishes
2. Evolution of the Fetish
3. Totemism
4. Magic
5. Magical Charms
6. The Practice of Magic

INTRODUCTION

88:0.1 (967.1) THE concept of a spirit's entering into an inanimate object, an animal, or a human being, is a very ancient and honorable belief, having prevail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This doctrine of spirit possession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fetishism*. The savage does not necessarily worship the fetish; he very logically worships and reverences the spirit resident therein.

88:0.2 (967.2) At first, the spirit of a fetish was believed to be the ghost of a dead man; later on, the higher spirits were supposed to reside in fetishes. And so the fetish cult eventually incorporated all of the primitive ideas of ghosts, souls, spirits, and demon possession.

1. BELIEF IN FETISHES

88:1.1 (967.3) Primitive man always wanted to make anything extraordinary into a fetish; chance therefore gave origin to many. A man is sick, something happens, and he gets well. The same thing is true of the reputation of many medicines and the chance methods of treating disease. Objects connected with dreams were likely to be

로 전환된다. 산이 아니라 화산(火山)이 주물로 바뀌었으며; 별이 아니라 혜성이 주물로 바뀌었다. 초기의 사람은, 유성(流星)과 운석이, 지구를 방문하는 특별한 영의 도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최초의 주물은 특별히 두드러진 모양의 조약돌이었고, 사람은 그 후로 항상 “신성시되는 돌”을 찾아다녔으며; 한 줄로 꿰 구슬 모양은, 한때 신성시되는 돌을 수집한 한 별의 마법 장식품이었다. 많은 부족이 돌로 된 주물을 갖고 있었지만, **카바** 신전과 **스콘의 돌**처럼 보존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불과 물 역시 초기 주물에 포함됐고, 불 숭배는 성수(聖水)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여전히 존재한다.

나무 주물이 나중에 생겼지만,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자연 숭배가 존속됨으로써, 어떤 종류의 자연 영이 마법의 장식품 속에 거주한다는 믿음으로 유도됐다. 식물과 과일이 주물이 되면, 그것들은 음식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사과는 이런 범주에 들어간 처음 것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레반트** 민족들은 그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

어떤 동물이 사람의 살을 먹으면, 그 동물은 주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는 **파시 교도**들에게 신성시되는 동물이 됐다. 주물이 동물이고, 유령이 그 속에 영구히 거주한다면, 주물숭배체계가 윤회(輪廻)와 충돌할 것이다. 미개인은 여러 면에서 동물을 부러워했는데; 동물보다 우세함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과 비슷하게 이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동물이 주물로 여겨지게 되면, 주물이 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기가 뒤따라 나타났다. 꼬리 없는 원숭이와 꼬리 있는 원숭이는, 사람을 닮았으므로 일찍부터 주물로 여겨지는 동물이었으며; 나중에, 뱀, 새, 및 돼지가 비슷한 존재로 간주됐다. 한때는 소가 주물이었는데, 우유가 금기인 반면, 그 배설물은 높이 평가됐다. 뱀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숭배됐고, 특히 **페니키아인**이 그랬는데, 그들은 **유대인**을 따라서 그것을 악한 영들의 대변자로 간주했다. 심지어 많은 현대인도 파충류의 마력을 믿는다. **아라비아**로부터, **인도** 전역을 지나, 홍색인 가운데 **모키** 부족의 뱀 춤에 이르기까지, 뱀을 숭배했다.

한 주 가운데 어떤 날이 주물이 되기도 했다. 금요일은 오랜 세월 불운한 날로 여겨져 왔으며,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행운의 숫자 3과 7은, 후대의 계시에서 유래했으며; 4는 원시인에게 행운의 숫자였고, 나침반의 네 지점에 대한 초기 인식에서 유래했다. 가축이나 기타 소유물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겼으며; 고대인은, 인구조사, 즉 “민족을 계수하기”를 항상 반대했다.

원시인은 성(性)에 대해 과도한 주물을 만들지는 않았으며; 생식(生殖) 기능은 한정된 관심만 받았을 뿐이다. 미개인은 꾸밈없는 정신을 소유했고, 음란하거나 음탕하지 않았다.

converted into fetishes. Volcanoes, but not mountains, became fetishes; comets, but not stars. Early man regarded shooting stars and meteors as indicating the arrival on earth of special visiting spirits.

88:1.2 (967.4) The first fetishes were peculiarly marked pebbles, and “sacred stones” have ever since been sought by man; a string of beads was once a collection of sacred stones, a battery of charms. Many tribes had fetish stones, but few have survived as have the Kaaba and the Stone of Scone. Fire and water were also among the early fetishes, and fire worship, together with belief in holy water, still survives.

88:1.3 (967.5) Tree fetishes were a later development, but among some tribes the persistence of nature worship led to belief in charms indwelt by some sort of nature spirit. When plants and fruits became fetishes, they were taboo as food. The apple was among the first to fall into this category; it was never eaten by the Levantine peoples.

88:1.4 (967.6) If an animal ate human flesh, it became a fetish. In this way the dog came to be the sacred animal of the Parsees. If the fetish is an animal and the ghost is permanently resident therein, then fetishism may impinge on reincarnation. In many ways the savages envied the animals; they did not feel superior to them and were often named after their favorite beasts.

88:1.5 (967.7) When animals became fetishes, there ensued the taboos on eating the flesh of the fetish animal. Apes and monkeys, because of resemblance to man, early became fetish animals; later, snakes, birds, and swine were also similarly regarded. At one time the cow was a fetish, the milk being taboo while the excreta were highly esteemed. The serpent was revered in Palestine, especially by the Phoenicians, who, along with the Jews, considered it to be the mouthpiece of evil spirits. Even many moderns believe in the charm powers of reptiles. From Arabia on through India to the snake dance of the Moqui tribe of red men the serpent has been revered.

88:1.6 (968.1) Certain days of the week were fetishes. For ages Friday has been regarded as an unlucky day and the number thirteen as an evil numeral. The lucky numbers three and seven came from later revelations; four was the lucky number of primitive man and was derived from the early recognition of the four points of the compass. It was held unlucky to count cattle or other possessions; the ancients always opposed the taking of a census, “numbering the people.”

88:1.7 (968.2) Primitive man did not make an undue fetish out of sex; the reproductive function received only a limited amount of attention. The savage was natural minded, not obscene or prurient.

침은 강력한 주물이었으며;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마귀가 쫓겨난다고 여겼다. 연장자나 위 사람이 누군가에게 침 뱉는 것은 최고의 인사였다. 인간 신체 부위가 잠재적 주물로 여겨졌는데, 특히 머리카락과 손톱이 그랬다. 족장의 길게 자란 손톱을 고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다듬고 남은 조각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해골을 주물로 여기는 믿음은 후대의 머리_사냥을 잘 설명한다. 땃줄은 높게 평가되는 주물이었으며;**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간주된다. 인류 최초의 노리개는 모아둔 땃줄이었다. 진주로 장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목걸이의 시초였다.

곱사등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는 주물로 간주됐으며;정신 이상자는, 달빛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 원시인은 천재와 정신이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정신박약아는 맞아 죽거나, 아니면 주물 인물로 숭배됐다. 광란{狂亂}은 마법에 대한 대중적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었으며;간질 환자들이 사제와 주술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영에 사로잡힌 형태로 간주됐으며;미개인이 실컷 마셨을 때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머리에 나뭇잎을 꽂았다. 독물{毒物}과 마취제가 주물이 됐으며;그것에 홀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천재를 현명한 영에게 사로잡힌 주물 인물로 간주했다. 그리고 재주 있는 이 인간들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곧 자기 행위와 속임수를 익히게 됐다. 주물 대상자를 인간 이상{以上}의 존재로 여겼으며;신성하게, 또는 심지어 무오{無誤}하게 여겼다. 족장, 왕, 사제, 선지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으며, 결국 큰 권력을 휘둘렀고, 무제한의 권세를 행사했다.

2. 주물의 진화

유령은 육체 속에 살았을 당시에 자신에게 속했던 어떤 물건 속에 계속 거주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여겨졌다. 이 믿음 때문에 현대에도 많은 유령이 간직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지도자의 뼈를 항상 숭배했고, 많은 사람은 성인{聖人}과 영웅의 유골{遺骨}을 여전히 미신적 경외심으로 바라본다. 오늘날에도 순례 행렬이 위대한 사람들의 묘지를 찾는다.

유령에 대한 믿음은 고대의 주물숭배 종파에서 파생됐다. 현대 종교의 역사적 유물은, 미개인의 주물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현대의 종교 체계 속에서 위엄과 체통을 유지하는 경지로 그렇게 끌어올린다. 주물과 마술을 믿음은 이교적{異敎的}이지만, 유령과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화로를--곧 벽난로를-- 어느 정도 주물, 즉 신성시되는 장소로 여겼다. 묘지와 신전이 최초의 미신적 숭배 대상 지역이 된 것은, 시체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주물숭

88:1.8 (968.3) Saliva was a potent fetish; devils could be driven out by spitting on a person. For an elder or superior to spit on one was the highest compliment. Parts of the human body were looked upon as potential fetishes, particularly the hair and nails. The long-growing fingernails of the chiefs were highly prized, and the trimmings thereof were a powerful fetish. Belief in skull fetishes accounts for much of later-day head-hunting. The umbilical cord was a highly prized fetish; even today it is so regarded in Africa. Mankind's first toy was a preserved umbilical cord. Set with pearls, as was often done, it was man's first necklace.

88:1.9 (968.4) Hunchbacked and crippled children were regarded as fetishes; lunatics were believed to be moon-struck. Primitive man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genius and insanity; idiots were either beaten to death or revered as fetish personalities. Hysteria increasingly confirmed the popular belief in witchcraft; epileptics often were priests and medicine men. Drunkenness was looked upon as a form of spirit possession; when a savage went on a spree, he put a leaf in his hair for the purpose of disavowing responsibility for his acts. Poisons and intoxicants became fetishes; they were deemed to be possessed.

88:1.10 (968.5) Many people looked upon geniuses as fetish personalities possessed by a wise spirit. And these talented humans soon learned to resort to fraud and trickery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selfish interests. A fetish man was thought to be more than human; he was divine, even infallible. Thus did chiefs, kings, priests, prophets, and church rulers eventually wield great power and exercise unbounded authority.

2. EVOLUTION OF THE FETISH

88:2.1 (968.6) It was a supposed preference of ghosts to indwell some object which had belonged to them when alive in the flesh. This belief explains the efficacy of many modern relics. The ancients always revered the bones of their leaders, and the skeletal remains of saints and heroes are still regarded with superstitious awe by many. Even today, pilgrimages are made to the tombs of great men.

88:2.2 (968.7) Belief in relics is an outgrowth of the ancient fetish cult. The relics of modern religions represent an attempt to rationalize the fetish of the savage and thus elevate it to a place of dignity and respectability in the modern religious systems. It is heathenish to believe in fetishes and magic but supposedly all right to accept relics and miracles.

88:2.3 (969.1) The hearth — fireplace — became more or less of a fetish, a sacred spot. The shrines and temples were at first fetish places because the dead were buried there. The fetish

배 장막을, 초월적 주물,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당시 현존하는 개념을 숨겨놓은 장소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족속**은, 돌 제단에 대한 **가나안족속**의 독특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는 주물에 불과한, 그런 돌 제단 속에 거하신다고 정말로 믿었다.

가장 초기의 상징은, 유명한 죽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기념물이었음이 사실이다. 우상은 주물숭배의 극치였다. 원시인은, 봉헌 예식을 통해서 영이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으며; 마찬가지로, 특정한 물체가 축복 받으면 주문{呪文}이 된다고 믿었다.

모세는, **달라마시아**에서 통용됐던 고대의 도덕 규약에 둘째 계명을 덧붙이면서, **히브리인** 가운데서 자행되던 주물 숭배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물로 신성시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지시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는 하늘을 날거나, 땅 위에 기어 다니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술을 매우 퇴보시켰지만 주물 숭배를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현명했으므로 옛 주물을 갑자기 버리도록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전쟁을 위한 제단인 동시에 종교적 성소였던 케 속에, 율법과 함께 특정한 유품들을 넣도록 승낙했다.

말씀이 결국 주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특별했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종교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사람의 영적 상상력을 가뒀 놓는 미신적 감옥{監獄}이 됐다. 주물을 배격하려는 **모세**의 바로 그 노력이 최고의 주물이 됐으며; 그의 계명은 나중에 예술을 망치는 데 사용됐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거나 찬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사용됐다.

옛날에는 주물이 된 권위 있는 말씀은, 두려움을 _고취시키는 교리였는데, 사람을 노예 삼는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무서웠다. 주물이 된 교리는,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본성을 드러내서, 편협한 신앙, 광신, 미신, 불관용, 그리고 가장 지독하고 야만적인 학대의 족쇄를 채우게 했다. 현대인이 지혜와 진리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주물을 만들려는 경향으로부터, 더 높은 사고와 이성{理性}의 수준으로 최근에 회피한 것일 뿐이다. 다양한 종교가들이 신성시되는 책으로 여긴, 축적된 주물 문서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책 속에 있는 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그 책 속에 있다고 믿었다. 이런 신성시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교롭게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다면, 여러 세대 동안, 다른 면에서는 멀쩡한 남녀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명확한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hut of the Hebrews was elevated by Moses to that place where it harbored a superfetish, the then existent concept of the law of God. But the Israelites never gave up the peculiar Canaanite belief in the stone altar: “And this stone which I have set up as a pillar shall be God’s house.” They truly believed that the spirit of their God dwelt in such stone altars, which were in reality fetishes.

88:2.4 (969.2) The earliest images were made to preserve the appearance and memory of the illustrious dead; they were really monuments. Idols were a refinement of fetishism. The primitives believed that a ceremony of consecration caused the spirit to enter the image; likewise, when certain objects were blessed, they became charms.

88:2.5 (969.3) Moses, in the addition of the second commandment to the ancient Dalamatian moral code, made an effort to control fetish worship among the Hebrews. He carefully directed that they should make no sort of image that might become consecrated as a fetish. He made it plain, “You shall not make a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of the earth.” While this commandment did much to retard art among the Jews, it did lessen fetish worship. But Moses was too wise to attempt suddenly to displace the olden fetishes, and he therefore consented to the putting of certain relics alongside the law in the combined war altar and religious shrine which was the ark.

88:2.6 (969.4) Words eventually became fetishes, more especially those which were regarded as God’s words; in this way the sacred books of many religions have become fetishistic prisons incarcerating the spiritual imagination of man. Moses’ very effort against fetishes became a supreme fetish; his commandment was later used to stultify art and to retard the enjoyment and adoration of the beautiful.

88:2.7 (969.5) In olden times the fetish word of authority was a fear-inspiring doctrine, the most terrible of all tyrants which enslave men. A doctrinal fetish will lead mortal man to betray himself into the clutches of bigotry, fanaticism, superstition, intolerance, and the most atrocious of barbarous cruelties. Modern respect for wisdom and truth is but the recent escape from the fetish-making tendency up to the higher levels of thinking and reasoning. Concerning the accumulated fetish writings which various religionists hold as sacred books, it is not only believed that what is in the book is true, but also that every truth is contained in the book. If one of these sacred books happens to speak of the earth as being flat, then, for long generations, otherwise sane men and women will refuse to accept positive evidence that the planet is round.

이런 신성시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를 펴서,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따름으로써,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기획을 결정하려는 풍습은, 터무니없는 맹목적 숭배와 다름없다. “거룩한 책”을 두고 서약하거나, 최고로 공경되는 어떤 물체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정교한 주물숭배체계의 한 형태다.

그러나, 미개인 족장의 손톱을 다듬은 부스러기를 주물로 두려워하는 것을 비롯해서, 편지, 법률, 전설, 우화, 신화, 시(詩), 및 연대기(年代記) 등의 훌륭한 수집품을 찬미하기까지 나아간 것은, 정말로 진화적 진보를 이룩했음을 나타내며, 결국 이것들은 적어도 “신성시되는 책”으로 수집된 시절과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선별된 도덕적 지혜를 반영한다.

주물이 되려면, 말쑥은 영감(靈感)된 것으로 간주돼야 했으며, 신성하게 영감 받아서 씌어졌다고 여겨지는 주문(呪文)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직접 세워진 반면, 국가의 권위는 시민정부 형태의 진화로 인해 실현됐다.

3. 토텐 숭배

주물숭배체계는, 신성시되는 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믿음으로부터, 우상 숭배, 식인 풍습, 및 자연 숭배를 거쳐서, 토텐숭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시 종파에 흘러 내려왔다.

토텐숭배는 사회 관례와 종교 관례의 혼합물이다. 원래는, 생물학적 원천이라고 추측되던 토텐 동물을 존중함으로써 식량 공급이 보장된다고 생각됐다. 토텐들은 한꺼번에 그 집단과 그들의 신(神)의 상징이었다. 그런 신은 의인화(擬人化)된 씨족이었다. 토텐숭배는, 다른 면에서 개인적인 종교를 사회적 종교로 만들려는 시도의 한 국면이었다. 토텐은 결국, 현대의 여러 민족의 깃발, 즉 국가적 상징물로 진화했다.

주물 주머니, 즉 마법의 주머니는, 유령이 들어 있다고 믿는 물건들로 훌륭하게 구색을 갖춘 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머니였고, 옛 주술사는 자기 능력의 상징인 그 주머니를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문명화된 민족들 역시, 국가적 의식(意識)의 상징인 깃발이 결코 땅에 닿지 않게 하려 한다.

사제 직책과 왕의 직책의 휘장은 결국 주물로 숭배됐고, 국가를 최고로 여기는 주물은, 씨족에서 부족으로, 종주권에서 주권으로, 토텐에서 깃발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주물로 여겨진 왕은 “거룩한 권한”으로 통치했고,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가 생겼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여론”을 형성했을 때, 보통 사람의 관념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한다. 한 사람의 의견 자체만으로는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민

88:2.8 (969.6) The practice of opening one of these sacred books to let the eye chance upon a passage, the following of which may determine important life decisions or projects,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arrant fetishism. To take an oath on a “holy book” or to swear by some object of supreme veneration is a form of refined fetishism.

88:2.9 (969.7) But it does represent real evolutionary progress to advance from the fetish fear of a savage chief's fingernail trimmings to the adoration of a superb collection of letters, laws, legends, allegories, myths, poems, and chronicles which, after all, reflect the winnowed moral wisdom of many centuries, at least up to the time and event of their being assembled as a “sacred book.”

88:2.10 (970.1) To become fetishes, words had to be considered inspired, and the invocation of supposed divinely inspired writings led direct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of the church, while the evolution of civil forms led to the fruition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3. TOTEMISM

88:3.1 (970.2) Fetishism ran through all the primitive cults from the earliest belief in sacred stones, through idolatry, cannibalism, and nature worship, to totemism.

88:3.2 (970.3) Totemism is a combination of social and religious observances. Originally it was thought that respect for the totem animal of supposed biologic origin insured the food supply. Totems were at one and the same time symbols of the group and their god. Such a god was the clan personified. Totemism was one phase of the attempted socialization of otherwise personal religion. The totem eventually evolved into the flag, or national symbol, of the various modern peoples.

88:3.3 (970.4) A fetish bag, a medicine bag, was a pouch containing a reputable assortment of ghost-impregnated articles, and the medicine man of old never allowed his bag, the symbol of his power, to touch the ground. Civilized peoples in the twentieth century see to it that their flags, emblems of national consciousness, likewise never touch the ground.

88:3.4 (970.5) The insignia of priestly and kingly office were eventually regarded as fetishes, and the fetish of the state supreme has passed through many stages of development, from clans to tribes, from suzerainty to sovereignty, from totems to flags. Fetish kings have ruled by “divine right,” and many other forms of government have obtained. Men have also made a fetish of democracy, the exaltation and adoration of the common man's ideas when collectively called “public opinion.”

주적 체제에서 집단으로 작용할 때에는, 바로 이 평범한 판단이 응보의 중재자와 정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One man's opinion, when taken by itself, is not regarded as worth much, but when many men are collectively functioning as a democracy, this same mediocre judgment is held to be the arbiter of justice and the standard of righteousness.

4. 마술

문명화된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실제 환경의 문제들을 공격하지만, 미개인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유령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실제 문제들을, 마술(魔術)로 해결하려고 했다. 마술은, 영이 들어있다고 추측되는 환경을 조종하는 기법이었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그 영의 음모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해명했으며, 마술은, 주물들 또는 더 강력한 다른 영들을 이용해서, 영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게 하고, 비자발적인 영에게는 도움을 강요하는 기술이었다.

마술, 요술, 그리고 점(占)의 목적은 이중적이었다:

1. 미래를 확고하게 통찰하기 위해서.
2.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과학의 목적은 마술의 목적과 일치한다. 인류는, 명상이나 이성이 아니라 오랜 체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술에서 과학으로 진보하고 있다. 사람은 점차, 진리로 되돌아가고, 오류에서 시작하며, 오류 속에서 진보하고, 마침내 진리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다. 그는 오직 과학적인 방법이 도래함으로써 똑바른 방향에서 있게 됐다. 그러나 원시인은 시도하든지 아니면 사라져야만 했다.

초기 미신의 매력이 나중에 과학적 호기심을 낳았다. 이런 원시적 미신들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있는-- 진취적인 역동적 감정이 있었으며, 옛날의 마술 속에는 진보하는 추진력이 있었다. 이런 미신은 지구의 환경을 알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출현했음을 가리켰다.

마술이 미개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는데, 그들이 자연사(自然死)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죄(原罪)라는 후대의 관념은, 자연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마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한 사람의 자연사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해서 무고한 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것이 고대 민족들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고,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고소당한 개인은 대개 죄를 고백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그랬다.

마술은 미개인에게 자연스럽다. 그는 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에 요술을 행함으로써 실제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뱀에 물려서 죽는 것은 요술쟁이의 마술 탓이라고 여겼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술에 대

4. MAGIC

^{88:4.1 (970.6)} Civilized man attacks the problems of a real environment through his science; savage man attempted to solve the real problems of an illusory ghost environment by magic. Magic was the technique of manipulating the conjectured spirit environment whose machinations endlessly explained the inexplicable; it was the art of obtaining voluntary spirit co-operation and of coercing involuntary spirit aid through the use of fetishes or other and more powerful spirits.

^{88:4.2 (970.7)} The object of magic, sorcery, and necromancy was twofold:

- ^{88:4.3 (970.8)} 1. To secure insight into the future.
- ^{88:4.4 (970.9)} 2. Favorably to influence environment.

^{88:4.5 (970.10)} The objects of science are identical with those of magic. Mankind is progressing from magic to science, not by meditation and reason, but rather through long experience, gradually and painfully. Man is gradually backing into the truth, beginning in error, progressing in error, and finally attaining the threshold of truth. Only with the arrival of the scientific method has he faced forward. But primitive man had to experiment or perish.

^{88:4.6 (970.11)} The fascination of early superstition was the mother of the later scientific curiosity. There was progressive dynamic emotion — fear plus curiosity — in these primitive superstitions; there was progressive driving power in the olden magic. These superstitions represented the emergence of the human desire to know and to control planetary environment.

^{88:4.7 (971.1)} Magic gained such a strong hold upon the savage because he could not grasp the concept of natural death. The later idea of original sin helped much to weaken the grip of magic on the race in that it accounted for natural death. It was at one time not at all uncommon for ten innocent persons to be put to death because of supposed responsibility for one natural death. This is one reason why ancient peoples did not increase faster, and it is still true of some African tribes. The accused individual usually confessed guilt, even when facing death.

^{88:4.8 (971.2)} Magic is natural to a savage. He believes that an enemy can actually be killed by practicing sorcery on his shingled hair or fingernail trimmings. The fatality of snake bites was attributed to the magic of the sorcerer. The

한 투쟁이 일어나지 못했다. 원시 민족들은, 마술을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마술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그런 결과가 잘못된 이 믿음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했다. 실패한 경우에 어떤 그럴듯한 해명을 늘 만들었는데, 불완전한 마술에 대한 치유책은 더 마술적이었다.

5. 마술적인 주문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주문이 될 수 있었으므로, 가장 초기의 마술은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관련이 있었다. 육신의 배설(排泄)을 은밀히 행하는 습관은, 육체에서 나온 어떤 것을 적(敵)이 취해서, 해로운 마술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유래했으며; 따라서 몸에서 나온 모든 배설물을 신중히 땅에 묻었다.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를 자제한 것은, 그 타액이 해롭게 하는 마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뱉은 침은 반드시 감췄다. 심지어 남은 음식, 옷, 그리고 장신구도 마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미개인은 식탁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함은, 적이 이것을 마술적 제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그런 관습에 위생 가치가 있음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마술적 주문(呪文)은 매우 다양한 물체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의 살, 호랑이 발톱, 악어 이빨, 유독성 식물의 씨, 뱀의 독액,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이 있었다. 죽은 시체의 뼈는 매우 마술적인 것이었다. 발자국에서 생겨난 먼지조차 마술에 이용될 수 있었다. 고대인은 사랑의 주문을 매우 강하게 믿었다. 피 또는 기타 형태의 육체 분비물이 사랑의 마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형상이 마술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됐다. 초상화가 그려졌고, 나쁘게 또는 좋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실제 몸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었다. 물건을 살 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나무 조각을 씹곤 했다.

검은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취급됐으며; 검은 고양이도 그랬다. 막대기 또는 지팡이는, 북, 종, 및 매듭과 함께 마술적인 것이었다. 옛날에는 모든 대상이 마술적 주문이었다. 새롭거나 더 높은 문명 세계의 관습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악한 마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글쓰기, 인쇄, 및 초상화가 오랫동안 그렇게 간주됐다.

원시인은, 이름, 특히 신들에 대한 이름을 특별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이름은, 실제, 즉 육체적 인물과는 다른 어떤 영향력으로 간주됐으며; 혼 및 그림자와 동일하게 존중됐다. 이름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렸으며; 빌린 것을 값으로써 다시 찾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증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다. 개인의 이름은 마술에서 곧 중요한 요소가 됐다. 미개인

difficulty in combating magic arises from the fact that fear can kill. Primitive peoples so feared magic that it did actually kill, and such results were sufficient to substantiate this erroneous belief. In case of failure there was always some plausible explanation; the cure for defective magic was more magic.

5. MAGICAL CHARMS

88:5.1 (971.3) Since anything connected with the body could become a fetish, the earliest magic had to do with hair and nails. Secrecy attendant upon body elimination grew up out of fear that an enemy might get possession of something derived from the body and employ it in detrimental magic; all excreta of the body were therefore carefully buried. Public spitting was refrained from because of the fear that saliva would be used in deleterious magic; spittle was always covered. Even food remnants, clothing, and ornaments could become instruments of magic. The savage never left any remnants of his meal on the table. And all this was done through fear that one's enemies might use these things in magical rites, not from any appreciation of the hygienic value of such practices.

88:5.2 (971.4) Magical charms were concocted from a great variety of things: human flesh, tiger claws, crocodile teeth, poison plant seeds, snake venom, and human hair. The bones of the dead were very magical. Even the dust from footprints could be used in magic. The ancients were great believers in love charms. Blood and other forms of bodily secretions were able to insure the magic influence of love.

88:5.3 (971.5) Images were supposed to be effective in magic. Effigies were made, and when treated ill or well, the same effects were believed to rest upon the real person. When making purchases, superstitious persons would chew a bit of hard wood in order to soften the heart of the seller.

88:5.4 (971.6) The milk of a black cow was highly magical; so also were black cats. The staff or wand was magical, along with drums, bells, and knots. All ancient objects were magical charms. The practices of a new or higher civilization were looked upon with disfavor because of their supposedly evil magical nature. Writing, printing, and pictures were long so regarded.

88:5.5 (971.7) Primitive man believed that names must be treated with respect, especially names of the gods. The name was regarded as an entity, an influence distinct from the physical personality; it was esteemed equally with the soul and the shadow. Names were pawned for loans; a man could not use his name until it had been redeemed by payment of the loan. Nowadays one signs his

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중요한 하나는 너무 신성하게 여겨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 번째, 즉 일상적 이름--곧 별명--을 사용했다. 낯선 자들에게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한 성질의 어떤 체험을 해도 이름을 바꿔야 했으며;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거나 불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름을 바꿨다. 미개인은 부족장으로부터 새 이름을 살 수 있었으며;사람들은 여전히 직위와 학위를 따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 같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 가운데서는, 개인의 이름이 없다.

name to a note. An individual's name soon became important in magic. The savage had two names; the important one was regarded as too sacred to use on ordinary occasions, hence the second or everyday name — a nickname. He never told his real name to strangers. Any experience of an unusual nature caused him to change his name; sometimes it was in an effort to cure disease or to stop bad luck. The savage could get a new name by buying it from the tribal chief; men still invest in titles and degrees. But among the most primitive tribes, such as the African Bushmen, individual names do not exist.

6. 마술의 실행

마술은, 요술 지팡이 사용, “주술{呪術}” 제례식, 그리고 주문 외우기를 통해서 실행되고, 마술사는 벌거벗고 일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원시 마술사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마술에서 “주술”은 치료가 아니라 신비를 의미한다. 미개인은 절대로 자신을 치료하지 않았으며;마술에 능통한 사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결코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세기 부두교의 주술사는 전형적인 옛 마술사다.

마술에는 공적{公的} 국면과 사적{私的} 국면 둘 다 있다.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가 행하는 것은, 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녀, 요술쟁이, 마법사는, 사람의 적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강제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적인 마술,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술을 시행했다. 이중 영 체계, 즉 선한 영과 악한 영 개념은, 백 마술과 흑 마술에 대한 후대의 믿음을 기원시켰다. 그리고 종교가 진화되면서, 마술은 자기 종파 바깥에서 작용하는 영에게 적용하는 용어였고, 마술은 또한 유령을 믿는 더 옛날의 믿음을 가리키기도 했다.

날말의 조합, 영창{詠唱}과 주문을 외우는 제례식은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의 어떤 주문은 마침내 기도문으로 발전했다. 이윽고, 흥내를 내는 마술이 실행됐고;기도문을 연극으로 꾸몄으며;마술적 춤은 극적{劇的}인 기도문에 불과했다. 기도는 제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점차 마술을 대신했다.

몸짓은, 말하기보다 오래됐는데, 더 거룩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고, 흥내를 내는 것은 강력한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흥색인은 때때로 들소 춤을 추곤 했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들소 역할을 하고 붙잡히는 시늉을 함으로써 곧 있을 사냥에서 성공을 보장하고자 했다. **5월축제**에서 성적인 잔치는, 단순히 흥내를 내는 마술, 즉 식물 세계의 성욕{性慾}에 암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형은 처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마술적인 부적으로 사용했다.

마술은 진화하는 종교 나무에서 뻗어 나간 가지였고, 결국 과학 시대라는 열매를 맺었다. 점성

6. THE PRACTICE OF MAGIC

^{88:6.1 (972.1)} Magic was practiced through the use of wands, “medicine” ritual, and incantations, and it was customary for the practitioner to work unclothed. Women outnumbered the men among primitive magicians. In magic, “medicine” means mystery, not treatment. The savage never doctored himself; he never used medicines except on the advice of the specialists in magic. And the voodoo doctors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typical of the magicians of old.

^{88:6.2 (972.2)} There was both a public and a private phase to magic. That performed by the medicine man, shaman, or priest was supposed to be for the good of the whole tribe. Witches, sorcerers, and wizards dispensed private magic, personal and selfish magic which was employed as a coercive method of bringing evil on one's enemies. The concept of dual spiritism, good and bad spirits, gave rise to the later beliefs in white and black magic. And as religion evolved, magic was the term applied to spirit operations outside one's own cult, and it also referred to older ghost beliefs.

^{88:6.3 (972.3)} Word combinations, the ritual of chants and incantations, were highly magical. Some early incantations finally evolved into prayers. Presently, imitative magic was practiced; prayers were acted out; magical dances were nothing but dramatic prayers. Prayer gradually displaced magic as the associate of sacrifice.

^{88:6.4 (972.4)} Gesture, being older than speech, was the more holy and magical, and mimicry was believed to have strong magical power. The red men often staged a buffalo dance in which one of their number would play the part of a buffalo and, in being caught, would insure the success of the impending hunt. The sex festivities of May Day were simply imitative magic, a suggestive appeal to the sex passions of the plant world. The doll was first employed as a magic talisman by the barren wife.

^{88:6.5 (972.5)} Magic was the branch off the evolutionary religious tree which eventually bore

술에 대한 믿음은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현자{賢者}의 돌에 대한 믿음은 금속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마술적 숫자에 대한 믿음은 수학을 창시했다.

그러나 주문{呪文}으로 가득한 세상은, 개인의 모든 열망과 독창력을 매우 많이 파괴시켰다. 더 노력하거나 부지런히 노동해서 얻은 소산물은, 마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이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면, 족장 앞에 끌려갔고, 이런 초과되는 곡식을, 게으른 이웃의 땅에서 피어났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개한 시절에는 많이 아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는데; 혹 마술사로 처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과학이 도박성 요소를 삶에서 점차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 방법이 실패한다면, 거의 즉시 마술에 대한 원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미신은, 소위 문명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의 정신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언어는 그 인종이 마술적인 미신에 오랫동안 물들었음을 증명하는 많은 흔적을 내포하는데, 마법에 걸렸다, 팔자가 사납다, 귀신이 붙었다, 영의 감응, 영처럼 사라진다, 재주가 많다, 낚을 빼앗겼다, 벼락 맞는다, 깜짝 놀랐다, 등의 말이 있다. 그리고 지성적인 인간이, 행운, 흉안, 및 점성술을 여전히 믿고 있다.

고대의 마술은 현대 과학을 낳은 고치였으며, 그 시대에는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리하여 무지한 미신으로 가득한 환상은, 과학의 개념들이 탄생될 때까지 사람의 원시 정신을 선동했다. 오늘날, **유란시아**는 이런 지적 진화에서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세계의 절반은 진리의 빛과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절반은, 옛날의 미신, 그러나 알파카게 변장한 마술의 품속에서 번민하고 있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 했음]

the fruit of a scientific age. Belief in astrology led to the development of astronomy; belief in a philosopher's stone led to the mastery of metals, while belief in magic numbers founded the science of mathematics.

88:6.6 (972.6) But a world so filled with charms did much to destroy all personal ambition and initiative. The fruits of extra labor or of diligence were looked upon as magical. If a man had more grain in his field than his neighbor, he might be haled before the chief and charged with enticing this extra grain from the indolent neighbor's field. Indeed, in the days of barbarism it was dangerous to know very much; there was always the chance of being executed as a black artist.

88:6.7 (972.7) Gradually science is removing the gambling element from life. But if modern methods of education should fail, there would be an almost immediate reversion to the primitive beliefs in magic. These superstitions still linger in the minds of many so-called civilized people. Language contains many fossils which testify that the race has long been steeped in magical superstition, such words as spellbound, ill-starred, possessions, inspiration, spirit away, ingenuity, entrancing, thunderstruck, and astonished. And intelligent human beings still believe in good luck, the evil eye, and astrology.

88:6.8 (973.1) Ancient magic was the cocoon of modern science, indispensable in its time but now no longer useful. And so the phantasms of ignorant superstition agitated the primitive minds of men until the concepts of science could be born. Today, Urantia is in the twilight zone of this intellectual evolution. One half the world is grasping eagerly for the light of truth and the facts of scientific discovery, while the other half languishes in the arms of ancient superstition and but thinly disguised magic.

88:6.9 (973.2)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89편. 죄, 제물, 속죄

⇨ 088

유란시아 책

09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89편
죄, 제물, 속죄

섹션

소개

1. 금기
2. 죄의 개념
3. 체념과 굴종
4. 제물의 기원
5. 제물과 식인 풍습
6. 인간 제물의 진화
7. 인간 제물의 변경
8. 구속과 계약
9. 제물과 성례
10. 죄의 용서

PAPER 89

SIN, SACRIFICE, AND ATONEM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aboo
2. The Concept of Sin
3.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4. Origins of Sacrifice
5. Sacrifices and Cannibalism
6. Evolution of Human Sacrifice
7.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8. Redemption and Covenants
9. Sacrifices and Sacraments
10. Forgiveness of Sin

소개

원시인은, 자신이 영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즉 속전{贖錢}을 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간주했다. 그렇게 판단하자 미개인은, 영들이 설령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자신에게 줬더라도, 공정하다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개념은 죄와 구원의 교리로 발전했다. 혼{魂}은 상실된 상태에서--곧 원죄{原罪}를 지니고-- 세상에 나온 것으로 간주됐다. 혼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고;속죄양을 바쳐야 했다. 사람_사냥꾼은, 해골 숭배 종파를 따르고, 그 외에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속죄인간을 바칠 수 있었다.

미개인은, 인간의 비참함, 고난, 및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영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오직 범행에 대한 죄만 고려했지만, 나중에는 태만에 대한 죄를 적용하게 됐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차후의 전체 체계가, 이런 두 개념을 중심으로 자라났다. 이 새로운 제례식은, 제물로 위로하는 예식을 준수하는 것과 관계있었다. 원시인은, 신{神}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INTRODUCTION

89:0.1 (974.1) PRIMITIVE man regarded himself as being in debt to the spirits, as standing in need of redemption. As the savages looked at it, in justice the spirits might have visited much more bad luck upon them. As time passed, this concept developed into the doctrine of sin and salvation. The soul was looked upon as coming into the world under forfeit — original sin. The soul must be ransomed; a scapegoat must be provided. The head-hunter, in addition to practicing the cult of skull worship, was able to provide a substitute for his own life, a scapeman.

89:0.2 (974.2) The savage was early possessed with the notion that spirits derive supreme satisfaction from the sight of human misery, suffering, and humiliation. At first, man was only concerned with sins of commission, but later he became exercised over sins of omission. And the whole subsequent sacrificial system grew up around these two ideas. This new ritual had to do with the observance of the propitiation ceremonies of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오직 진보된 문명이, 시종일관하게 한결같이_침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 속죄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기보다, 당면한 불행을 물리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회피, 쫓아내기, 강압, 및 달래기 같은 제례식이 모두 서로 뒤섞여서 합쳐졌다.

1. 금기

금기{禁忌}의 준수는, 사람이 불운을 피하려는, 즉 어떤 것을 회피함으로써 영적 유령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금기가 처음에는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유령 또는 영의 허락을 받고자 했으며, 그렇게 강화됐을 때, 금기는 법률 제정자와 제도 설립자가 됐다. 금기는 예식 표준의 근원이며, 원시적 자아_통제의 선조다. 그것은 사회 규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였고, 매우 오랫동안 유일한 규제였으며; 여전히 사회를 규제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다.

미개인의 정신 속에서 이런 금지조항들은, 금지조항들을 집행한다고 추측되는 권력자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똑같은 만큼 존경심을 강요했다. 금기는 처음에 불행을 우연히 체험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나중에는 족장과 무당--곧 영 유령의 지시, 심지어 신{神}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물 사람들--이 금기를 제안했다. 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시인의 정신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았으므로, 자신이 금기 사항을 위반했을 때 놀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런 극적인 사건은, 생존자의 정신에 미치는 금기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다.

가장 오래된 금지조항들 가운데, 여자 및 기타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다. 종교가 금기의 진화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금지된 물건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됐고, 나중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히브리인**의 기록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지만, 이런 계통에 따른 그들의 믿음은, 많은 다른 민족의 관념보다 훨씬 덜 복잡하고 범위가 좁았다.

히브리인의 열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일곱 계명은, 명확한 금기였고, 가장 오래된 금지조항처럼, 동일한 부정적 형태로 모든 것이 표현됐다.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이 법전은, 선재{先在}하던 수천 가지 금기를 대체시키면서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후대의 계명들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점이다.

초기의 음식 금기는 주물숭배체계와 토렘숭배체계에서 기원됐다. **페니키아인**에게는 돼지가, **힌두인**에게는 소가 신성시됐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집트인**의 금기가 **히브리** 신앙과 **이슬람**

sacrifice. Primitive man believed that something special must be done to win the favor of the gods; only advanced civilization recognizes a consistently even-tempered and benevolent God. Propitiation was insurance against immediate ill luck rather than investment in future bliss. And the rituals of avoidance, exorcism, coercion, and propitiation all merge into one another.

1. THE TABOO

89:1.1 (974.3) Observance of a taboo was man's effort to dodge ill luck, to keep from offending the spirit ghosts by the avoidance of something. The taboos were at first nonreligious, but they early acquired ghost or spirit sanction, and when thus reinforced, they became lawmakers and institution builders. The taboo is the source of ceremonial standards and the ancestor of primitive self-control. It was the earliest form of societal regulation and for a long time the only one; it is still a basic unit of the social regulative structure.

89:1.2 (974.4) The respect which these prohibitions commanded in the mind of the savage exactly equaled his fear of the powers who were supposed to enforce them. Taboos first arose because of chance experience with ill luck; later they were proposed by chiefs and shamans — fetish men who were thought to be directed by a spirit ghost, even by a god. The fear of spirit retribution is so great in the mind of a primitive that he sometimes dies of fright when he has violated a taboo, and this dramatic episode enormously strengthens the hold of the taboo on the minds of the survivors.

89:1.3 (974.5) Among the earliest prohibitions were restrictions on the appropriation of women and other property. As religion began to play a larger part in the evolution of the taboo, the article resting under ban was regarded as unclean, subsequently as unholy. The records of the Hebrews are full of the mention of things clean and unclean, holy and unholy, but their beliefs along these lines were far less cumbersome and extensive than were those of many other peoples.

89:1.4 (975.1) The seven commandments of Dalamatia and Eden, as well as the ten injunctions of the Hebrews, were definite taboos, all expressed in the same negative form as were the most ancient prohibitions. But these newer codes were truly emancipating in that they took the place of thousands of pre-existent taboos. And more than this, these later commandments definitely promised something in return for obedience.

89:1.5 (975.2) The early food taboos originated in fetishism and totemism. The swine was sacred to the Phoenicians, the cow to the Hindus. The Egyptian taboo on pork has been perpetuated by

신앙에 계승됐다. 음식에 대한 금기에서 변형된 한 형태는, 임신한 여자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음식물은 그 아이에게 금기가 되곤 했다.

먹는 방식이 곧 금기가 됐고, 그리하여 고대와 현대의 식탁 예절이 생겨났다. 신분계층 체계와 사회의 표준은, 옛 금지조항이 남아 있는 흔적이다. 금기는 사회를 조직하는 데서 매우 유효했지만, 몹시 부담됐으며; 부정적 금지 체계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규칙들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고, 케케묵은, 그리고 쓸모없는 금기들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광범하고 잡다한 금기를 제외하면, 어떤 문명화된 사회도 원시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 것이며, 원시 종교가 지지하는 제재규약이 없었다면, 금기는 결코 지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진화에서 다수의 근본 요소는 매우 값이 비쌌는데, 노력과 제물과 금욕에 막대한 대가{代價}를 치렀지만, 자아 통제라는 이런 업적은, 사람이 밟고 올라간 문명의 사다리에서 진정한 발판 역할을 했다.

2. 죄의 개념

운수{運數}에 대한 두려움과 불행에 대한 공포는, 이런 재난을 막는 대비책이라고 여겨진 원시 종교를 창안하도록, 글자 그대로 인간을 내몰았다. 종교는, 마술과 유령으로부터, 영{靈}과 주물을 거쳐서, 금기 사항으로 진화했다. 각 원시 부족마다, 금지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사과였지만, 수천 개의 가지에 온갖 종류의 금기가 무겁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금단의 나무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미개인 정신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모두 상상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고, 진화하는 종교로부터 금기가 진지한 지지를 받게 되자, 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모두 준비됐다. 죄의 관념은, 계시된 종교가 미처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됐다. 오직 죄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자연사가 원시 정신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죄는 금기 사항을 어기는 것이었고,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었다.

죄는 이성적이 아니라 제례적이었으며; 생물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죄에 대한 이런 전체 개념은, **딜문**의 전통,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작은 낙원 시절에 관한 남아있는 전통 때문에 조성됐다. **에덴 동산**과 **아담**의 전통 역시, 인종의 여명기에 한때 “황금기”가 있었다는 몽상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특별한 창조에서 기원했다는 믿음, 완전한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했다는 믿음, 그리고 금기를 어김이--곧 죄가-- 그를 나중에

the Hebraic and Islamic faiths. A variant of the food taboo was the belief that a pregnant woman could think so much about a certain food that the child, when born, would be the echo of that food. Such viands would be taboo to the child.

89:1.6 (975.3) Methods of eating soon became taboo, and so originated ancient and modern table etiquette. Caste systems and social levels are vestigial remnants of olden prohibitions. The taboos were highly effective in organizing society, but they were terribly burdensome; the negative-ban system not only maintained useful and constructive regulations but also obsolete, outworn, and useless taboos.

89:1.7 (975.4) There would, however, be no civilized society to sit in criticism upon primitive man except for these far-flung and multifarious taboos, and the taboo would never have endured but for the upholding sanctions of primitive religion. Many of the essential factors in man's evolution have been highly expensive, have cost vast treasure in effort, sacrifice, and self-denial, but these achievements of self-control were the real rungs on which man climbed civilization's ascending ladder.

2. THE CONCEPT OF SIN

89:2.1 (975.5) The fear of chance and the dread of bad luck literally drove man into the invention of primitive religion as supposed insurance against these calamities. From magic and ghosts, religion evolved through spirits and fetishes to taboos. Every primitive tribe had its tree of forbidden fruit, literally the apple but figuratively consisting of a thousand branches hanging heavy with all sorts of taboos. And the forbidden tree always said, “Thou shalt not.”

89:2.2 (975.6) As the savage mind evolved to that point where it envisaged both good and bad spirits, and when the taboo received the solemn sanction of evolving religion, the stage was all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new conception of *sin*. The idea of sin was universally established in the world before revealed religion ever made its entry. It was only by the concept of sin that natural death became logical to the primitive mind. Sin was the transgression of taboo, and death was the penalty of sin.

89:2.3 (975.7) Sin was ritual, not rational; an act, not a thought. And this entire concept of sin was fostered by the lingering traditions of Dilmun and the days of a little paradise on earth. The tradition of Adam and the Garden of Eden also lent substance to the dream of a onetime “golden age” of the dawn of the races. And all this confirmed the ideas later expressed in the belief that man had his origin in a special creation, that he started his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다는 믿음으로 후대에 표현된 관념을 입증했다.

금기를 습관적으로 어기는 것은 악덕이 됐으며; 원시 법률은 악덕을 범죄로 규정했으며; 종교는 그것을 죄라고 했다. 초기 부족들 가운데서, 금기를 어기는 것은 위법과 죄가 혼합된 의미였다. 공동체가 겪는 재난은 항상 부족의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됐다. 의로움과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악한 자의 외견상 번영이 너무 괴로웠으므로, 금기 사항을 어긴 자들을 위한 지옥 개념을 창안할 수밖에 없었으며; 미래의 형벌에 대한 이 장소의 숫자는 하나에서 다섯까지 다양했다.

자백과 용서의 관념은 원시 종교에서 일찍부터 출현했다.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저지르려고 하는 죄를 위해, 공개회의에서 용서를 미리 부탁하곤 했다. 자백은 단순히 용서를 위한 제례에 불과했으며,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통고하고,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외치는 예식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는 정결 제례식 순서가 이어졌다. 고대의 모든 민족이 무의미한 이 예식을 행했다. 외견상 위생적인 옛 부족들의 관습 대부분이 주로 예식절차였다.

3. 체념과 굴종

체념이 종교 진화에서 다음 단계로 발생했으며; 금식이 일반 풍습이었다. 여러 형태의 육체적 쾌락, 특히 성적(性的) 본성을 지닌 쾌락을 삼가는 것이 곧 관습으로 굳어졌다. 금식하는 제례식은, 고대의 여러 종교에 깊이 뿌리 내렸고, 실질적으로 현대의 모든 신학 사고 체계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죽은 사람과 함께 재산을 태우고 땅 속에 묻는 낭비하는 풍습에서 야만인이 막 벗어날 무렵이 되자, 인종들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체념에 대한 이런 새로운 종교 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진지한 혼을 지닌 수많은 사람이 가난을 자초하기 시작했다. 재산은 영적 불이익으로 간주됐다. 물질 소유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은, **필로**와 **바울** 시대에 널리 유행했고, **유럽**의 사상에 유례없는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가난은 육신의 극기에 속하는 제례식의 일부였고,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 문헌과 교훈에 삽입됐다. 참회는, 체념이라는, 흔히 어리석은 이 제례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개인에게 **자아_통제**를 가르쳤고, 이는 사회 진화에서 상당한 발전이었다. 금욕과 자아_통제는 초기 진화 종교에서 얻은 두 가지 가장 큰 사회적 소득이었다. 자아_통제는 새 인생철학을 사람에게 제공했고; 이기적 만족이라

career in perfection, and that transgression of the taboos — sin — brought him down to his later sorry plight.

89:2.4 (976.1) The habitual violation of a taboo became a vice; primitive law made vice a crime; religion made it a sin. Among the early tribes the violation of a taboo was a combined crime and sin. Community calamity was always regarded as punishment for tribal sin. To those who believed that prosperity and righteousness went together, the apparent prosperity of the wicked occasioned so much worry that it was necessary to invent hells for the punishment of taboo violators; the numbers of these places of future punishment have varied from one to five.

89:2.5 (976.2) The idea of confession and forgiveness early appeared in primitive religion. Men would ask forgiveness at a public meeting for sins they intended to commit the following week. Confession was merely a rite of remission, also a public notification of defilement, a ritual of crying “unclean, unclean!” Then followed all the ritualistic schemes of purification. All ancient peoples practiced these meaningless ceremonies. Many apparently hygienic customs of the early tribes were largely ceremonial.

3.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89:3.1 (976.3) Renunciation came as the next step in religious evolution; fasting was a common practice. Soon it became the custom to forgo many forms of physical pleasure, especially of a sexual nature. The ritual of the fast was deeply rooted in many ancient religions and has been handed down to practically all modern theologic systems of thought.

89:3.2 (976.4) Just about the time barbarian man was recovering from the wasteful practice of burning and burying property with the dead, just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races was beginning to take shape, this new religious doctrine of renunciation appeared, and tens of thousands of earnest souls began to court poverty. Property was regarded as a spiritual handicap. These notions of the spiritual dangers of material possession were widely entertained in the times of Philo and Paul, and they have markedly influenced European philosophy ever since.

89:3.3 (976.5) Poverty was just a part of the ritual of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which, unfortunately,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writings and teachings of many religions, notably Christianity. Penance is the negative form of this oftentimes foolish ritual of renunciation. But all this taught the savage *self-control*, and that was a worth-while advancement in social evolution. Self-denial and self-control were two of the greatest social gains

는 분자{分子}를 증대시키려고 항상 애쓰는 대신, 개인적 욕구라는 분모를 낮춤으로써 인생의 분수{分數}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사람에게 가르쳤다.

자아 훈련에 속하는 이런 옛 관념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고문과 매질을 포함했다. 어머니를 섬기는 종파의 사제들이 특히 육체적 고통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는데, 스스로 거세{去勢}함으로써 본을 보이려고 했다. **히브리인, 힌두인, 및 불교도**들은, 육체적 굴종에 속하는 이 교리를 진지하게 신봉했다.

옛 시절 내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神}들의 금욕 장부책에서 여분의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감정적 압박을 당할 때, 금욕과 고행의 맹세를 하는 것이 한때의 관습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런 맹세는 신{神}들과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행과 극기에 대한 대가{代價}로 신들이 확실히 무언가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면에서, 진화에서 참된 발전이었다. 맹세는 부정적이기도 했고 긍정적이기도 했다. 해롭고 극단적 특성을 갖는 이 맹세를, **인도**의 어떤 집단들이 오늘날 가장 잘 준수한다.

체념과 굴종을 요구하는 종파가 성적 만족에 눈을 돌린 것은 그저 자연스러웠다. 군인들 가운데서,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절제하는 종파가 제례식으로서 생겨났으며; 나중에는 “성자”라는 풍습이 됐다. 이 종파는 결혼을 간음보다는 약간 덜 악한 것으로 묵인했다. 세상의 큰 종교 가운데 다수는 이런 고대 종파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받아왔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교**보다 더 뚜렷이 영향받지는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 종파를 신봉했고, 그의 개인적 견해는, 그가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확정 시켰던 교훈에 반영됐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남자가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게 말하겠는데,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교훈이 **예수**의 복음의 일부가 아님을 잘 알았고, 이런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말함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예찬이, **바울**로 하여금 여자를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유감스런 것은, 그의 개인 의견이 위대한 세계 종교의 교훈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천막 만드는 그 선생의 충고를 글자 그대로 보편적으로 지켰다면, 인간 종족은 갑작스럽게 불명예스런 종말을 맞았을 것이다. 더욱이, 고대의 절제하는 종파에 종교가 휩쓸려 들어가면, 인간 진화의 기본 제도이고 참된 사회적 기초에 해당하는 가정과 결혼에 항거하는 전쟁이 직접 발생된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신념이, 다양한 민족의 여러 종교에서 독신자 사제계층 형성을 조장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from early evolutionary religion. Self-control gave man a new philosophy of life; it taught him the art of augmenting life's fraction by lowering the denominator of personal demands instead of always attempting to increase the numerator of selfish gratification.

89:3.4 (976.6) These olden ideas of self-discipline embraced flogging and all sorts of physical torture. The priests of the mother cult were especially active in teaching the virtue of physical suffering, setting the example by submitting themselves to castration. The Hebrews, Hindus, and Buddhists were earnest devotees of this doctrine of physical humiliation.

89:3.5 (976.7) All through the olden times men sought in these ways for extra credits on the self-denial ledgers of their gods. It was once customary, when under some emotional stress, to make vows of self-denial and self-torture. In time these vows assumed the form of contracts with the gods and, in that sense, represented true evolutionary progress in that the gods were supposed to do something definite in return for this self-torture and mortification of the flesh. Vows we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Pledges of this harmful and extreme nature are best observed today among certain groups in India.

89:3.6 (977.1)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cult of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sexual gratification. The continence cult originated as a ritual among soldiers prior to engaging in battle; in later days it became the practice of “saints.” This cult tolerated marriage only as an evil lesser than fornication. Many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have been adversely influenced by this ancient cult, but none more markedly than Christianity. The Apostle Paul was a devotee of this cult, and his personal views are reflected in the teachings which he fastened onto Christian theology: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I would that all men were even as I myself.” “I say, therefore, to the unmarried and widows, it is good for them to abide even as I.” Paul well knew that such teachings were not a part of Jesus' gospel, and his acknowledgment of this is illustrated by his statement, “I speak this by permission and not by commandment.” But this cult led Paul to look down upon women. And the pity of it all is that his personal opinions have long influenced the teachings of a great world religion. If the advice of the tentmaker-teacher were to be literally and universally obeyed, then would the human race come to a sudden and inglorious end. Furthermore, the involvement of a religion with the ancient continence cult leads directly to a war against marriage and the home, society's veritable foundation and the basic institution of human progress. And it is not to be wondered at that all such beliefs fostered the formation of celibate priesthoods in the many religions of various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 폭식하지 않고 자양분을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방탕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언젠가는 사람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자아_통제는, 극단적 금욕보다 뛰어난, 인간의 습성을 규제하는 방침이다. 또한 **예수**는 이런 비이성적 견해를 추종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었다.

4. 제물의 기원

종교적 헌신의 일부분으로서의 제물은, 다른 여러 경건한 제례식처럼,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원된 것이 아니다. 권력자 앞에 허리 숙이고 신비적 존재 앞에 경건한 동경을 드리면서 엎드리려는 경향은, 주인 앞에 아양 떠는 개의 태도에서 잘 예시된다. 숭배하려는 충동으로부터 제물을 바치는 행동까지는 겨우 한 걸음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로 제물의 값을 판단했다. 제물 관념이 처음으로 종교 예식절차에 덧붙여졌을 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제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제물은 머리카락을 뽑고, 살을 도려내고, 수족을 절단하고, 이를 뽑아내고,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였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거친 제물 개념은 자기_희생, 고행, 금식, 궁핍의 제례식 수준으로 향상됐고, 나중에 는 슬픔, 고난, 및 육체의 극기를 통해서 성화(聖化)된다는 **그리스도교** 교리로 발전했다.

종교의 진화에서, 초기에는 제물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존재했는데: 선물을 바치는 관념은 감사드리는 태도를 암시했고, 빚 갚는 제물은 죄 값을 치른다는 관념을 포함했다. 나중에는 죄 값을 대신 치른다는 개념이 발전했다.

그 후에 사람은, 어떤 성질의 제물이든지, 그 제물이 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향기로운 냄새로 신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제례식에 향과 기타 미적{美的} 특색을 더했고, 제례식은 제물을 바치는 축제로 발전했으며, 시간이 지나자, 축제는 점점 더 정교하고 화려하게 됐다.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 화해하고 달래는 제물 제례가, 옛날의 도피, 달래기, 및 쫓아내기 등의 방법을 대신했다.

가장 초기의 제물 관념은, 조상의 영들이 균형 있게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관념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야 속죄 관념이 개발됐다. 인종이 진화로 기원됐다는 개념이 사람에게서 사라지면서, **행성 왕자** 시대와 **아담**이 머물던 시대의 전통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제거되면서, 죄와 원죄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됐고, 그리하여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제물은, 종족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물 교리로 진화했다. 제물로 죄 값을

peoples.

89:3.7 (977.2) Someday man should learn how to enjoy liberty without license, nourishment without gluttony, and pleasure without debauchery. Self-control is a better human policy of behavior regulation than is extreme self-denial. Nor did Jesus ever teach these unreasonable views to his followers.

4. ORIGINS OF SACRIFICE

89:4.1 (977.3) Sacrifice as a part of religious devotions, like many other worshipful rituals, did not have a simple and single origin. The tendency to bow down before power and to prostrate oneself in worshipful adoration in the presence of mystery is foreshadowed in the fawning of the dog before its master. It is but one step from the impulse of worship to the act of sacrifice. Primitive man gauged the value of his sacrifice by the pain which he suffered. When the idea of sacrifice first attached itself to religious ceremonial, no offering was contemplated which was not productive of pain. The first sacrifices were such acts as plucking hair, cutting the flesh, mutilations, knocking out teeth, and cutting off fingers. As civilization advanced, these crude concepts of sacrifice were elevated to the level of the rituals of self-abnegation, asceticism, fasting, deprivation, and the later Christian doctrine of sanctification through sorrow, suffering, and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89:4.2 (977.4) Early in the evolution of religion there existed two conceptions of the sacrifice: the idea of the gift sacrifice, which connoted the attitude of thanksgiving, and the debt sacrifice, which embraced the idea of redemption. Later there developed the notion of substitution.

89:4.3 (977.5) Man still later conceived that his sacrifice of whatever nature might function as a message bearer to the gods; it might be as a sweet savor in the nostrils of deity. This brought incense and other aesthetic features of sacrificial rituals which developed into sacrificial feasting, in time becoming increasingly elaborate and ornate.

89:4.4 (978.1) As religion evolved, the sacrificial rites of conciliation and propitiation replaced the older methods of avoidance, placation, and exorcism.

89:4.5 (978.2) The earliest idea of the sacrifice was that of a neutrality assessment levied by ancestral spirits; only later did the idea of atonement develop. As man got away from the notion of the evolutionary origin of the race, as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sojourn of Adam filtered down through time, the concept of sin and of original sin became widespread, so that sacrifice for accidental and personal sin evolved

치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神)의 분노와 질투심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비책이었다.

신경질적인 허다한 영과 욕심 많은 신들로 둘러싸인 채, 원시인은 수많은 빚쟁이 신격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빚을 평생토록 갚기 위해서, 모든 사제, 제례식 및 제물이 필요했다. 원죄 교리, 즉 인종 전체에게 죄가 있다는 교리는, 사람마다 영 권력자들에게 무거운 빚을 진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선물과 뇌물을 사람에게 주지만;신들에게 바칠 때에는, 그것들이 헌납됐다고 설명하거나, 신성시 됐다가, 또는 제물이라고 부른다. 제님은 소극적 형태로 달래는 것이었으며;제물은 적극적 형태가 됐다. 신을 달래는 행위에는, 찬양, 찬미, 아침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 연회를 베푸는 것까지 포함됐다. 신을 달래던 옛 종파의 이런 적극적 관습의 잔재가, 현대의 신성한 경배 형태를 구성한다. 오늘날의 경배 형태는, 적극적으로 신을 달래는 제물의 이런 옛 기법을 제례식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현대의 종족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것보다 원시인에게 훨씬 많은 것을 의미했다. 이런 야만인은 동물을 가까운 실제 친척으로 간주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데 약삭빨라져서, 일을 돕는 동물은 바치지 않게 됐다. 처음에는 길들여진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바쳤다.

이집트의 어떤 통치자가:113,433명의 노예, 493,386마리의 가축, 88척의 배, 2,756개의 금으로 된 형상, 331,702병의 꿀과 기름, 228,380병의 포도주, 680,714마리의 거위, 6,744,428덩어리의 빵, 5,740,352자루의 동전을 제물로 바쳤다고 공표했을 때, 그것은 빈말로 자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였음에 틀림없다.

신들은 제물에서 떠난 혼을 즐기므로, 심각한 궁핍이 이런 반미개인으로 하여금 결국 제물로 바친 것들 중에서 고기를 먹게 했다. 그리고 이 관습은, 옛날에는 신성시되는 식사, 현대의 관례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됐다.

5. 제물과 식인 풍습

초기의 식인(食人) 풍습에 대한 현대 개념은 아주 잘못됐는데;그것은 초기 공동체의 사회관행 가운데 일부였다. 현대 문명은 식인 풍습을 끔찍한 전통이라고 인식하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사회 및 종교 구조의 일부였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식인 풍습의 실행이 강요됐다. 그것은 궁핍의 압박감에서 발생했고, 미신과 무지에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중

into the doctrine of sacrifice for the atonement of racial sin. The atonement of the sacrifice was a blanket insurance device which covered even the resentment and jealousy of an unknown god.

89:4.6 (978.3) Surrounded by so many sensitive spirits and grasping gods, primitive man was face to face with such a host of creditor deities that it required all the priests, ritual, and sacrifices throughout an entire lifetime to get him out of spiritual debt.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or racial guilt, started every person out in serious debt to the spirit powers.

89:4.7 (978.4) Gifts and bribes are given to men; but when tendered to the gods, they are described as being dedicated, made sacred, or are called sacrifices. Renunciation was the negative form of propitiation; sacrifice became the positive form. The act of propitiation included praise, glorification, flattery, and even entertainment. And it is the remnants of these positive practices of the olden propitiation cult that constitute the modern forms of divine worship. Present-day forms of worship are simply the ritualization of these ancient sacrificial techniques of positive propitiation.

89:4.8 (978.5) Animal sacrifice meant much more to primitive man than it could ever mean to modern races. These barbarians regarded the animals as their actual and near kin. As time passed, man became shrewd in his sacrificing, ceasing to offer up his work animals. At first he sacrificed the *best* of everything, including his domesticated animals.

89:4.9 (978.6) It was no empty boast that a certain Egyptian ruler made when he stated that he had sacrificed: 113,433 slaves, 493,386 head of cattle, 88 boats, 2,756 golden images, 331,702 jars of honey and oil, 228,380 jars of wine, 680,714 geese, 6,744,428 loaves of bread, and 5,740,352 sacks of corn. And in order to do this he must needs have sorely taxed his toiling subjects.

89:4.10 (978.7) Sheer necessity eventually drove these semisavages to eat the material part of their sacrifices, the gods having enjoyed the soul thereof. And this custom found justification under the pretense of the ancient sacred meal, a communion service according to modern usage.

5. SACRIFICES AND CANNIBALISM

89:5.1 (978.8) Modern ideas of early cannibalism are entirely wrong; it was a part of the mores of early society. While cannibalism is traditionally horrible to modern civilization, it was a part of the social and religious structure of primitive society. Group interests dictated the practice of cannibalism. It grew up through the urge of necessity and persisted because of the slavery of superstition

교적, 및 군사적 관습이었다.

초기의 사람은 사람을 먹는 자였으며; 인간의 살을 즐겼고, 따라서 영들 및 자신이 섬기는 원시적 신들에게 먹는 선물로서 인간의 살을 바쳤다. 유령이 된 영들은 단순히 변경된 사람으로 여겨졌고, 음식은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필수품이었으므로, 영들에게도 음식이 가장 중요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식인 풍습은, 진화하는 인종들 가운데서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상익** 인종들은 모두 식인 풍습을 갖고 있었지만, **안돈족속**은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고, **노트족속**과 **아담족속**도 그렇지 않았으며; **안드족속**도 진화 인종들과 많이 섞이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인간의 살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다. 배고픔, 우정, 복수심, 또는 종교 제례식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인간의 살을 먹는 것은 습관적 식인 풍습으로 변했다. 사람을 먹는 것은 양식 부족 때문에 발생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적은 드물다. 그러나, **에스키모**와 초기 **안돈족속**은 굶어 죽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인 풍습이 없었다. 홍색인, 특히 **중앙 아메리카**에 있던 그들은 식인이었다. 분만하면서 잃은 기운을 되찾으려고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것이 원시 어머니들에게 한때 일반 풍습이었고, **퀸즈랜드**에서는 첫 아이를 죽여서 먹는 일이 아직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식인 풍습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이 전쟁을 벌이는 방법, 즉 이웃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종의 소름끼치는 짓으로서, 고의로 이용됐다.

어떤 식인 풍습은, 한때 우세했던 혈통이 퇴화함으로 생겼지만, 대체로 진화 인종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을_먹는 것은, 적에 대해 격렬하고 냉혹한 감정을 체험했을 때 발생했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엄숙한 복수(復讐) 예식의 일부가 됐으며; 이렇게 해서, 적의 유령이 파괴되거나 먹는 사람의 유령과 결합된다고 믿었다. 오술쟁이들이 인간의 살을 먹음으로써 능력을 얻는다는 믿음이 한때 널리 퍼졌다.

사람을_먹는 어떤 집단은 오직 자기 부족원만 먹곤 했는데, 거짓된 영적 근친 교배가 부족의 단결을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적의 힘을 뺏는다는 관념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 적을 잡아먹었다. 친구 부족 또는 벗의 시체를 먹는 것이 그 혼에게 영광스런 일로 간주된 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적에게는 다만 확실한 형벌이 될 뿐이었다. 미개한 정신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허세부리지 않았다.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늙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먹히기를 원했으며; 또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가까운 친척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관

and ignorance. It was a social, economic, religious, and military custom.

89:5.2 (979.1) Early man was a cannibal; he enjoyed human flesh, and therefore he offered it as a food gift to the spirits and his primitive gods. Since ghost spirits were merely modified men, and since food was man's greatest need, then food must likewise be a spirit's greatest need.

89:5.3 (979.2) Cannibalism was once well-nigh universal among the evolving races. The Sangiks were all cannibalistic, but originally the Andonites were not, nor were the Nodites and Adamites; neither were the Andites until after they had become grossly admixed with the evolutionary races.

89:5.4 (979.3) The taste for human flesh grows. Having been started through hunger, friendship, revenge, or religious ritual, the eating of human flesh goes on to habitual cannibalism. Man-eating has arisen through food scarcity, though this has seldom been the underlying reason. The Eskimos and early Andonites, however, seldom were cannibalistic except in times of famine. The red men, especially in Central America, were cannibals. It was once a general practice for primitive mothers to kill and eat their own children in order to renew the strength lost in childbearing, and in Queensland the first child is still frequently thus killed and devoured. In recent times cannibalism has been deliberately resorted to by many African tribes as a war measure, a sort of frightfulness with which to terrorize their neighbors.

89:5.5 (979.4) Some cannibalism resulted from the degeneration of once superior stocks, but it was mostly prevalent among the evolutionary races. Man-eating came on at a time when men experienced intense and bitter emotions regarding their enemies. Eating human flesh became part of a solemn ceremony of revenge; it was believed that an enemy's ghost could, in this way, be destroyed or fused with that of the eater. It was once a widespread belief that wizards attained their powers by eating human flesh.

89:5.6 (979.5) Certain groups of man-eaters would consume only members of their own tribes, a pseudospiritual inbreeding which was supposed to accentuate tribal solidarity. But they also ate enemies for revenge with the idea of appropriating their strength. It was considered an honor to the soul of a friend or fellow tribesman if his body were eaten, while it was no more than just punishment to an enemy thus to devour him. The savage mind made no pretensions to being consistent.

89:5.7 (979.6) Among some tribes aged parents would seek to be eaten by their children; among others it was customary to refrain from eating near

습이 있었으며;그들의 시체를 팔거나 낯선 사람의 것과 교환했다. 도살하기 위해 살찌게 한, 여자와 아이를 거래하는 일도 상당히 있었다. 질병이나 전쟁이 인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과잉된 숫자를 허물없이 잡아먹었다.

식인 풍습이 점차 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 때문이었다:

1. 식인 풍습이, 때로는 공동 사회의 예식, 즉 동료 부족원에게 사형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전체, 즉 공동체가 참여할 때에는, 살인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인 풍습은, 이와 같이 사형 집행된 죄수를 먹는 것이었다.

2. 식인 풍습은 아주 일찍부터 종교 제례식으로 바뀌었지만, 유령에 대한 증대되는 두려움, 사람을_먹는 일을 줄여주도록 항상 작용하지는 않았다.

3. 결국 시체의 특정 부위 또는 기관들만 먹는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그 부위들은 혼 또는 영의 일부분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피를 마시는 것이 일반화됐고, 육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약품과 섞는 것이 관습이었다.

4. 식인 풍습이 남자에게 국한됐고;여자는 사람의 살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5. 그 다음에는, 족장, 사제, 그리고 무당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6. 그 후에는, 식인 풍습이 상류 부족들 가운데서 금기가 됐다.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기는 **달라마시아**에서 기원됐고, 서서히 온 세계에 퍼졌다. 땅에 묻은 시체를 다시 파내서 먹는 것이 한때 일반 풍습이었기 때문에, **노족속**은 식인 풍습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장{火葬}을 권장했다.

7.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식인 풍습에 종말을 고했다. 인간의 살은, 우세한 사람, 즉 우두머리의 음식이었고, 결국 더 우세한 영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으며, 그리하여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식인 풍습을 효과적으로 멈추게 했으나, 가장 열등한 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자, 사람을_먹는 것은 금기가 됐으며;인간의 살은 오직 신들의 음식이 됐으며;사람은 예식적인 작은 조각, 즉 성찬만 먹을 수 있었다.

마침내 제물을 바치는 목적에 동물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고, 더 뒤떨어진 부족들 가운데서도, 개를_먹음으로써 사람을_먹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개는 최초로 길들여진 동물이었고, 그 자체로서, 그리고 양식으로서 가장 존중됐다.

6. 인간 제물의 진화

relations; their bodies were sold or exchanged for those of strangers. There was considerable commerce in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fattened for slaughter. When disease or war failed to control population, the surplus was unceremoniously eaten.

89:5.8 (979.7) Cannibalism has been gradually disappearing because of the following influences:

89:5.9 (979.8) 1. It sometimes became a communal ceremony, the assum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inflicting the death penalty upon a fellow tribesman. The blood guilt ceases to be a crime when participated in by all, by society. The last of cannibalism in Asia was this eating of executed criminals.

89:5.10 (979.9) 2. It very early became a religious ritual, but the growth of ghost fear did not always operate to reduce man-eating.

89:5.11 (979.10) 3. Eventually it progressed to the point where only certain parts or organs of the body were eaten, those parts supposed to contain the soul or portions of the spirit. Blood drinking became common, and it was customary to mix the “edible” parts of the body with medicines.

89:5.12 (980.1) 4. It became limited to men; women were forbidden to eat human flesh.

89:5.13 (980.2) 5. It was next limited to the chiefs, priests, and shamans.

89:5.14 (980.3) 6. Then it became taboo among the higher tribes. The taboo on man-eating originated in Dalamatia and slowly spread over the world. The Nodites encouraged cremation as a means of combating cannibalism since it was once a common practice to dig up buried bodies and eat them.

89:5.15 (980.4) 7. Human sacrifice sounded the death knell of cannibalism. Human flesh having become the food of superior men, the chiefs, it was eventually reserved for the still more superior spirits; and thus the offering of human sacrifices effectively put a stop to cannibalism, except among the lowest tribes. When human sacrifice was fully established, man-eating became taboo; human flesh was food only for the gods; man could eat only a small ceremonial bit, a sacrament.

89:5.16 (980.5) Finally animal substitutes came into general use for sacrificial purposes, and even among the more backward tribes dog-eating greatly reduced man-eating. The dog was the first domesticated animal and was held in high esteem both as such and as food.

6. EVOLUTION OF HUMAN SACRIFICE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식인 풍습을 고치는 처방일 뿐만 아니라, 그 간접 결과였다. 영을 호위해서 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려는 노력 역시 사람을 먹는 일을 줄여줬는데, 제물로 바쳐졌던 시체를 먹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족은 없었지만, **안돈족속, 노족속, 및 아담족속**은 식인 풍습에 가장 적게 몰들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사실상 보편적이었으며, **중국인, 힌두인, 이집트인,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기타 여러 민족의 종교 관습에서 지속됐고, 오늘날에도, 뒤떨어진 **아프리카인과 오스트랄리아** 부족들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후대의 **아메리카 인디언**은 식인 풍습에서 벗어난 문명을 소유했고, 따라서 인간 제물에 몰두했는데, 특히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에서 그랬다. **갈대아인**은 평범한 경우에 인간 제물 바치기를 처음으로 거부한 사람에 속했고, 동물로 대체시켰다. 약 2천 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느 인정 많은 황제가 인간 제물 대신 진흙으로 만든 형상을 바치도록 가르쳤지만, 북부 **유럽**에서는 이런 제물이 사라진 지 1,000년이 못됐다. 뒤쳐진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인간 제물이 지원자들, 즉 일종의 종교적 또는 제례적 자살 행위로 여전히 수행된다. 한때 어느 무당이 어떤 부족에서 매우 존경 받는 한 노인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켰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신을 죽이도록 했으며;고대인은 이 관습을 진지하게 믿었다.

기록된 사건 가운데, **입다**와 그의 외동딸에 대한 **히브리인**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일은 없을 것인데, 고대의 전통적 관습과 진취적 문명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슴을 찢는 듯한 갈등을 보여준다. 일반 관습대로, 마음씨 좋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맹세를 했는데, “전쟁의 신”과 흥정해서, 적을 물리치게 해 주는 어떤 대가{代價}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입다**는 믿을만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자기 딸에게 벌어졌고, 유일한 자식이 뛰어나와서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심지어 그런 후기 시대에도, 그리고 문명화됐으리라고 생각되는 민족 가운데서도, 두 달 동안 자신의 운명을 슬퍼한 후, 동료 부족민의 동의하에, 그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소녀를 실제로 인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 제물을 철저히 금지한 **모세**의 엄중한 판결문에도 아랑곳없이 자행됐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들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데 빠지며, 옛 사람은 그런 모든 서약을 무척 신성하게 여겼다.

89:6.1 (980.6) Human sacrifice was an indirect result of cannibalism as well as its cure. Providing spirit escorts to the spirit world also led to the lessening of man-eating as it was never the custom to eat these death sacrifices. No race has been entirely free from the practice of human sacrifice in some form and at some time, even though the Andonites, Nodites, and Adamites were the least addicted to cannibalism.

89:6.2 (980.7) Human sacrifice has been virtually universal; it persisted in the religious customs of the Chinese, Hindus, Egyptians, Hebrews, Mesopotamians, Greeks, Romans, and many other peoples, even on to recent times among the backward African and Australian tribes. The later American Indians had a civilization emerging from cannibalism and, therefore, steeped in human sacrifice, especially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Chaldeans were among the first to abandon the sacrificing of humans for ordinary occasions, substituting therefor animals. About two thousand years ago a tenderhearted Japanese emperor introduced clay images to take the place of human sacrifices, but it was less than a thousand years ago that these sacrifices died out in northern Europe. Among certain backward tribes, human sacrifice is still carried on by volunteers, a sort of religious or ritual suicide. A shaman once ordered the sacrifice of a much respected old man of a certain tribe. The people revolted; they refused to obey. Whereupon the old man had his own son dispatch him; the ancients really believed in this custom.

89:6.3 (980.8) There is no more tragic and pathetic experience on record, illustrative of the heart-tearing contentions between ancient and time-honored religious customs and the contrary demands of advancing civilization, than the Hebrew narrative of Jephthah and his only daughter. As was common custom, this well-meaning man had made a foolish vow, had bargained with the “god of battles,” agreeing to pay a certain price for victory over his enemies. And this price was to make a sacrifice of that which first came out of his house to meet him when he returned to his home. Jephthah thought that one of his trusty slaves would thus be on hand to greet him, but it turned out that his daughter and only child came out to welcome him home. And so, even at that late date and among a supposedly civilized people, this beautiful maiden, after two months to mourn her fate, was actually offered as a human sacrifice by her father, and with the approval of his fellow tribesmen. And all this was done in the face of Moses’ stringent rulings against the offering of human sacrifice. But men and women are addicted to making foolish and needless vows, and the men of old held all such pledges to be highly sacred.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 건물이 지어질 때, 한 사람을 죽여서 “기초(基礎) 제물”로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유령이 된 영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감시하고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인**은 종(鐘)을 주조할 준비가 됐을 때, 종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관습에 따라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소녀를 제물로 바치게 돼있었으며; 선택된 소녀는 용해된 쇠물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

중요한 성벽 속에 노예를 산채로 집어넣는 것이, 여러 집단의 오랫동안의 풍습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새로운 건물 벽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이런 관습 대신, 지나가는 사람의 초상화를 벽 속에 넣었다. **중국인**은 건물을 짓다가 죽은 인부를 벽 속에 묻었다.

팔레스틴의 어떤 웅장한 왕은 **여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그 기초를 놓으면서 만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우면서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그런 후기 시대에, 그 아버지는 그 성문의 기초석 구멍에 두 아들을 산채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모세**는 기초를 위한 이런 제물을 금지했지만, **이스라엘족속**은 그가 죽은 직후에 이런 풍습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건물의 주춧돌 속에 장신구와 기념품을 보관시키는 20세기 예식은, 기초를 위한 원시 제물의 흔적이다.

첫 열매를 영들에게 바치는 것이 오랫동안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상징적 의미가 된 이런 관례는 모두,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초기 예식의 유물이다. 첫_태생을 제물로 바치는 관념이 고대인에게 널리 퍼졌는데, 특히 **페니키아인**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포기한 민족이었다. 제물을 바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 너희는 죽음에 이를 때 “티끌에서 티끌로”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억지로 제물로 바치려던 장면은, 감수성 예민한 문명인에게서는 충격적인 것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롭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심한 감정적 압박감에 짓눌린 아버지가 첫_태생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유행한 풍습이었다. 여러 민족이 이와 유사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비범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한때 세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7. 인간 제물의 변경

모세는, 인간 대신 몸값을 내게 함으로써 인간 제물을 끝내려고 애썼다. 자기 민족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조직적 명세

89:6.4 (981.1) In olden times, when a new building of any importance was started, it was customary to slay a human being as a “foundation sacrifice.” This provided a ghost spirit to watch over and protect the structure. When the Chinese made ready to cast a bell, custom decreed the sacrifice of at least one maide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tone of the bell; the girl chosen was thrown alive into the molten metal.

89:6.5 (981.2) It was long the practice of many groups to build slaves alive into important walls. In later times the northern European tribes substituted the walling in of the shadow of a passerby for this custom of entombing living persons in the walls of new buildings. The Chinese buried in a wall those workmen who died while constructing it.

89:6.6 (981.3) A petty king in Palestine, in building the walls of Jericho, “laid the foundation thereof in Abiram, his first-born, and set up the gates thereof in his youngest son, Segub.” At that late date, not only did this father put two of his sons alive in the foundation holes of the city’s gates, but his action is also recorded as being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Moses had forbidden these foundation sacrifices, but the Israelites reverted to them soon after his death. The twentieth-century ceremony of depositing trinkets and keepsakes in the cornerstone of a new building is reminiscent of the primitive foundation sacrifices.

89:6.7 (981.4) It was long the custom of many peoples to dedicate the first fruits to the spirits. And these observances, now more or less symbolic, are all survivals of the early ceremonies involving human sacrifice. The idea of offering the first-born as a sacrifice was widespread among the ancients, especially among the Phoenicians, who were the last to give it up. It used to be said upon sacrificing, “life for life.” Now you say at death, “dust to dust.”

89:6.8 (981.5) The spectacle of Abraham constrained to sacrifice his son Isaac, while shocking to civilized susceptibilities, was not a new or strange idea to the men of those days. It was long a prevalent practice for fathers, at times of great emotional stress, to sacrifice their first-born sons. Many peoples have a tradition analogous to this story, for there once existed a world-wide and profound belief that it was necessary to offer a human sacrifice when anything extraordinary or unusual happened.

7.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89:7.1 (981.6) Moses attempted to end human sacrifices by inaugurating the ransom as a substitute. He established a systematic schedule which enabled his people to escape the worst results of their rash and foolish vows. Lands,

서를 설립했다. 정해진 값으로, 땅, 재산, 및 자녀를 구제할 수 있었으며, 그 속전을 사제들에게 지불할 수 있었다. 첫 태생을 제물로 바치기를 멈추게 된 그 집단은, 이런 잔학한 행위를 계속하는 뒤쳐진 이웃 민족들보다 곧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됐다. 뒤떨어진 그런 부족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들을 잃어버림으로써 크게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도권 계승조차 종종 끊어졌다.

첫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관습은,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사라지면서 생겨났다. 이런 일은 한 해의 신성시되는 축제 가운데 하나와 관련해서 종종 이뤄졌고, 이 예식(禮式)은 한때 **멕시코**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아이를 죽이는 제례식을 대부분의 집단이 멈춘 후에도, 갓난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즉 광야에 두거나 또는 배 위에 혼자 태워 물위에 띄워놓는 관습이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신(神)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했다고 생각했으며, **사르곤**, **모세**, **키루스**, 및 **로물루스**에 관한 전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을 신성시되는 존재로서 또는 산 제물로서 바치는 풍습이 생겨나서, 그들을 자라게 한 뒤에, 죽이는 대신 멀리 떠나도록 허용했으며; 이것이 식민지 형성의 기원이 됐다. **로마인**의 식민지화 계획은 이런 관습을 고수했다.

원시적 숭배와 성적 방종이 독특하게 합쳐진 것들 가운데 다수는 인간 제물과 관련해서 기원됐다. 옛날에는, 어떤 여자가 인간 사냥꾼을 만나게 되면, 성적으로 항복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후대에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가, 신전에서 신성시되는 성적(性的) 봉사의 삶에 자기 몸을 바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이런 식으로 보상의 돈을 벌 수도 있었다. 고대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여자와 성관계 맺는 것을 매우 고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신성시되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종교 예식이었으며, 더욱이 이런 제례식 전체가, 진부한 성적 만족을 위한 구실을 제공했다. 이것은 그 처녀와 그 상대자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즐기는, 미묘한 종류의 자아 기만이 었다. 문명의 진화 발전을 사회관행이 항상 방해했으며, 진화 인종들의 더 오래되고 더 야만스러운 성적 풍습들이 그런 식으로 허용됐다.

신전 매춘 행위는 결국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도 널리 퍼졌다. 신전 매춘 행위로 번 돈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신성시되는 것으로--곧 신들에게 바쳐진 고귀한 선물로--간주됐다. 가장 고상한 유형의 여자들이 신전에서 매춘 시장에 몰려들었고, 자신이 번 돈을 온갖 종류의 신성시되는 예배와 공익사업에 바쳤다. 상류의 여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전에서 일시적인 성적 봉사를 통해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여

properties, and children could be redeem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fees, which were payable to the priests. Those groups which ceased to sacrifice their first-born soon possessed great advantages over less advanced neighbors who continued these atrocious acts. Many such backward tribes were not only greatly weakened by this loss of sons, but even the succession of leadership was often broken.

89:7.2 (982.1) An outgrowth of the passing child sacrifice was the custom of smearing blood on the house doorpo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first-born. This was often done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 sacred feasts of the year, and this ceremony once obtained over most of the world from Mexico to Egypt.

89:7.3 (982.2) Even after most groups had ceased the ritual killing of children, it was the custom to put an infant away by itself, off in the wilderness or in a little boat on the water. If the child survived, it was thought that the gods had intervened to preserve him, as in the traditions of Sargon, Moses, Cyrus, and Romulus. Then came the practice of dedicating the first-born sons as sacred or sacrificial, allowing them to grow up and then exiling them in lieu of death; this was the origin of colonization. The Romans adhered to this custom in their scheme of colonization.

89:7.4 (982.3) Many of the peculiar associations of sex laxity with primitive worship had their origin in connection with human sacrifice. In olden times, if a woman met head-hunters, she could redeem her life by sexual surrender. Later, a maiden consecrated to the gods as a sacrifice might elect to redeem her life by dedicating her body for life to the sacred sex service of the temple; in this way she could earn her redemption money. The ancients regarded it as highly elevating to have sex relations with a woman thus engaged in ransoming her life. It was a religious ceremony to consort with these sacred maidens, and in addition, this whole ritual afforded an acceptable excuse for commonplace sexual gratification. This was a subtle species of self-deception which both the maidens and their consorts delighted to practice upon themselves. The mores always drag behind in the evolutionary advance of civilization, thus providing sanction for the earlier and more savagelike sex practices of the evolving races.

89:7.5 (982.4) Temple harlotry eventually spread throughout southern Europe and Asia. The money earned by the temple prostitutes was held sacred among all peoples — a high gift to present to the gods. The highest types of women thronged the temple sex marts and devoted their earnings to all kinds of sacred services and works of public good. Many of the better classes of women collected their dowries by temporary sex service in the

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선호했다.

temples, and most men preferred to have such women for wives.

8. 구속과 계약

제물로 죄 값을 치르는 것과 신전 매춘 행위는, 실제로는 인간 제물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들을 가짜로 바치는 일이 등장했다. 이 예식은, 평생 처녀로 지내기로 헌신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뤄졌고, 그 전에 있었던 신전 매춘에 대한 도덕적 반작용이었다. 더 최근에는, 신성시되는 신전 성화(聖火)를 돌보는 일에 처녀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사람들은 결국, 신체의 어떤 부분을 바치는 것이, 인간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더 옛날의 관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신체를 잘라내는 것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머리카락, 손톱, 피,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제물로 바쳐졌다. 후대에 거의 보편적으로 퍼진, 할례(割禮)를 행하는 옛 제례는, 일부분을 제물로 바치는 종파에서 발생했으며; 순전한 제물에 해당했고, 거기에 첨부된 위생학적 개념은 전혀 없었다. 남자는 할례를 받았고; 여자는 귀에 구멍을 뚫었다.

나중에는 손가락을 자르는 대신, 그것들을 묶는 것이 관습이 됐다.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역시 종교적 헌신의 비슷한 형태였다. 내시(內侍)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인간 제물 관념의 변경이었다. 코와 귀를 뚫는 행위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문신(文身) 행위는, 먼 옛날에 몸에 조잡하게 상처를 내던 것이 예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관습은, 발전하는 교훈의 결과로, 결국 계약 관념과 연결됐다. 마침내, 신들이 인간과 실제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것은 종교가 안정을 이루게 되는 주요 단계였다. 율법, 즉 계약이, 운수(運數), 두려움, 및 미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사람은, 그의 **하나님** 개념이, 우주 통제관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격**과 계약 맺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초기 관념은 너무나 의인화 됐으므로, 자신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믿을 만한 **신격**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관념이 결국 조성됐다. 진화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감히 자신의 신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도덕적 존엄성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제물이 점차 발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성적으로 협상하는 시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운을 물리치는 대비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한 번영을 위한 발전적 방법이 었다. 이런 초기 제물이, 신들에게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고,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8. REDEMPTION AND COVENANTS

89:8.1 (982.5) Sacrificial redemption and temple prostitution were in reality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Next came the mock sacrifice of daughters. This ceremony consisted in bloodletting, with dedication to lifelong virginity, and was a moral reaction to the older temple harlotry. In more recent times virgins dedica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ending the sacred temple fires.

89:8.2 (982.6) Men eventually conceived the idea that the offering of some part of the body could take the place of the older and complete human sacrifice. Physical mutilation was also considered to be an acceptable substitute. Hair, nails, blood, and even fingers and toes were sacrificed. The later and well-nigh universal ancient rite of circumcision was an outgrowth of the cult of partial sacrifice; it was purely sacrificial, no thought of hygiene being attached thereto. Men were circumcised; women had their ears pierced.

89:8.3 (983.1) Subsequently it became the custom to bind fingers together instead of cutting them off. Shaving the head and cutting the hair were likewise forms of religious devotion. The making of eunuchs was at first a modification of the idea of human sacrifice. Nose and lip piercing is still practiced in Africa, and tattooing is an artistic evolution of the earlier crude scarring of the body.

89:8.4 (983.2) The custom of sacrifice eventually became associated, as a result of advancing teachings, with the idea of the covenant. At last, the gods were conceived of as entering into real agreements with man; and this was a major step in the stabilization of religion. Law, a covenant, takes the place of luck, fear, and superstition.

89:8.5 (983.3) Man could never even dream of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Deity until his concept of God had advanced to the level whereon the universe controllers were envisioned as dependable. And man's early idea of God was so anthropomorphic that he was unable to conceive of a dependable Deity until he himself became relatively dependable, moral, and ethical.

89:8.6 (983.4) But the idea of making a covenant with the gods did finally arrive. Evolutionary man eventually acquired such moral dignity that he dared to bargain with his gods. And so the business of offering sacrifices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game of man's philosophic bargaining with God. And all this represented a new device for insuring against bad luck or, rather, an enhanced technique for the more definite purchase of prosperity. Do not entertain the mistaken idea that

바쳐진 것이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참된 경배의 표현이 아니었다.

원시 형태의 기도는, 영들과의 협상, 즉 신들과의 논쟁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물물교환 같은 것이었고, 그 속에 포함된 변론과 설득은, 더 실제적이고 값나가는 어떤 것과 바꾸려는 것이었다. 종족들의 발전하는 교역{交易}은, 매매하는 정신을 심어줬고, 영리하게 물물교환하도록 발달시켰으며; 그때부터 이런 기운이 인간의 경배 방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인{商人}이 되듯이,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됐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매우 존중됐다. 의로운 사람이란, 영들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마친, 신들에 대한 모든 제례적 채무{債務}를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이었다.

초기의 기도는 도저히 경배라고 할 수 없었으며; 건강, 재산, 및 생명을 위해서 거래하는 청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기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고, 형식적으로 암송하며, 바퀴에 새겨놓고 나무에 걸어놓기 위해서 베껴 쓰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허튼소리 하는 수고를, 불어오는 바람이 덜어줄 것이다.

9. 제물과 성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유란시아** 제례식이 진화하는 과정 내내, 사람을 먹는 잔인한 거래로부터, 더 높고 더 상징적인 수준으로 진보해 왔다. 제물을 바치는 초기 제례식이 후대의 성례{聖禮}예식을 탄생시켰다. 더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제가 혼자서 야만적인 제물 한 조각을 먹거나 사람의 피를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동물 대용품을 먹곤 했다. 몸값, 구속{救贖}, 및 계약과 같은 이런 초기 관념은 후대의 성례 예배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예식의 진화는, 강력하게 사회화 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멕시코 및 기타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종파와 연결돼서, 결국 떡과 포도주로 구성된 성찬식이, 옛날에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활용됐다. **히브리인**은 이런 제례식을 **유월절** 예식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바로 이 예식절차로부터, 나중에 **그리스도교**식 성찬이 탄생했다.

고대 사회의 형제관계는 피를 마시는 제례에 기초했으며; 초기 **유대인** 공동체는 제물의 피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바울**은 “영원한 계약의 피”에 기초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종파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피와 제물에 관한 교훈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에 방해 요소를 제공하기는 했

these early sacrifices were a free gift to the gods, a spontaneous offering of gratitude or thanksgiving; they were not expressions of true worship.

89:8.7 (983.5) Primitive forms of prayer were nothing more nor less than bargaining with the spirits, an argument with the gods. It was a kind of bartering in which pleading and persuasion were substituted for something more tangible and costly. The developing commerce of the races had inculcated the spirit of trade and had developed the shrewdness of barter; and now these traits began to appear in man's worship methods. And as some men were better traders than others, so some were regarded as better prayers than others. The prayer of a just man was held in high esteem. A just man was one who had paid all accounts to the spirits, had fully discharged every ritual obligation to the gods.

89:8.8 (983.6) Early prayer was hardly worship; it was a bargaining petition for health, wealth, and life. And in many respects prayers have not much changed with the passing of the ages. They are still read out of books, recited formally, and written out for emplacement on wheels and for hanging on trees, where the blowing of the winds will save man the trouble of expending his own breath.

9. SACRIFICES AND SACRAMENTS

89:9.1 (983.7) The human sacrific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evolution of Urantian rituals, has advanced from the bloody business of man-eating to higher and more symbolic levels. The early rituals of sacrifice bred the later ceremonies of sacrament. In more recent times the priest alone would partake of a bit of the cannibalistic sacrifice or a drop of human blood, and then all would partake of the animal substitute. These early ideas of ransom, redemption, and covenants have evolved into the later-day sacramental services. And all this ceremonial evolution has exerted a mighty socializing influence.

89:9.2 (984.1) In connection with the Mother of God cult, in Mexico and elsewhere, a sacrament of cakes and wine was eventually utilized in lieu of the flesh and blood of the older human sacrifices. The Hebrews long practiced this ritual as a part of their Passover ceremonies, and it was from this ceremonial that the later Christian version of the sacrament took its origin.

89:9.3 (984.2) The ancient social brotherhoods were based on the rite of blood drinking; the early Jewish fraternity was a sacrificial blood affair. Paul started out to build a new Christian cult on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while he may have unnecessarily encumbered Christianity

어도, 인간이나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단숨에 끝내버렸다. 그의 신학적 타협은, 진화의 누진적 통제에 계시조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완전무결한 인간 제물이 됐으며; 신성한 **재판관**은 이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만족하게 됐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제물 바치는 종파는 성례를 행하는 종파로 진화했다. 이렇게 현대 종교의 성찬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충격적인 초기 예식과, 그 이전에 있었던 식인 제례식을 합리적으로 계승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피에 의존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비유이고 상징이며 신비가 됐다.

10. 죄의 용서

고대의 사람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기에 도달했을 뿐이다. 현대인은 구원에 대한 자아_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죄에 대한 의식은 필사 정신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만, 거기서 나온 구원에 대한 사고 {思考} 경향들은 진부하고 낡은 것이 됐다. 영적 필요라는 실체는 지속되지만, 지적 진보는 정신 및 혼에게 평화와 위로를 보장하는 옛 방식을 파괴해 왔다.

죄는, **신격**에 대한 고의적 불충 {不忠}이라고, 다시 정의돼야 한다. 불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유부단한 부분적 충성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된 충성이 있으며; 무관심이라는 죽어가는 충성이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이상 {理想}에 대한 헌신에서 드러나는 죽은 충성이 있다.

죄의식 또는 죄책감은 사회관행을 위반했음을 의식 {意識}하는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다. 자각하면서 **신격**에게 불충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죄는 아니다.

죄책감을 인식할 가능성은 인류에게 초월적 탁월성이 있다는 표시다.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 위대성과 영원토록_상승하는 영광스런 존재로 구별시킨다. 그런 부덕 {不德}하다는 느낌은 초기의 자극이고, 이것은 신앙의 승리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인도해야만 할 것인데, 그 승리는 필사 정신을, 도덕적 숭고함, 시공 우주 통찰력, 및 영적 생활이라는 훌륭한 수준으로 전환시키며; 이처럼 인간 실존의 모든 의미는 현세의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바뀌고, 모든 가치는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높아진다.

죄의 고백은 불충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것이지만, 그런 불충의 시공간 결말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고백--곧 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은 종교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필수

with teachings about blood and sacrifice, he did once and for all make an end of the doctrines of redemption through human or animal sacrifices. His theologic compromises indicate that even revelation must submit to the graduated control of evolution. According to Paul, Christ became the last and all-sufficient human sacrifice; the divine Judge is now fully and forever satisfied.

89:9.4 (984.3) And so, after long ages the cult of the sacrifice has evolved into the cult of the sacrament. Thus are the sacraments of modern religions the legitimate successors of those shocking early ceremonies of human sacrifice and the still earlier cannibalistic rituals. Many still depend upon blood for salvation, but it has at least become figurative, symbolic, and mystic.

10. FORGIVENESS OF SIN

89:10.1 (984.4) Ancient man only attained consciousness of favor with God through sacrifice. Modern man must develop new techniques of achieving the self-consciousness of salvation. The consciousness of sin persists in the mortal mind, but the thought patterns of salvation therefrom have become outworn and antiquated.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need persists, but intellectual progress has destroyed the olden ways of securing peace and consolation for mind and soul.

89:10.2 (984.5) Sin must be redefined as deliberate disloyalty to Deity. There are degrees of disloyalty: the partial loyalty of indecision; the divided loyalty of confliction; the dying loyalty of indifference; and the death of loyalty exhibited in devotion to godless ideals.

89:10.3 (984.6) The sense or feeling of guilt is the consc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he mores; it is not necessarily sin. There is no real sin in the absence of conscious disloyalty to Deity.

89:10.4 (984.7) The possibil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sense of guilt is a badge of transcendent distinction for mankind. It does not mark man as mean but rather sets him apart as a creature of potential greatness and ever-ascending glory. Such a sense of unworthiness is the initial stimulus that should lead quickly and surely to those faith conquests which translate the mortal mind to the superb levels of moral nobility, cosmic insight, and spiritual living; thus are all the meanings of human existence changed from the temporal to the eternal, and all values are elevated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89:10.5 (984.8) The confession of sin is a manful repudiation of disloyalty, but it in no wise mitigates the time-space consequences of such disloyalty. But confession — sincere recognition of the

요소다.

신격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고의적 반역 결과로 그런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을 한동안 인간이 의식한 후에, 충성스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용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오직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충실한 관계가 회복됨을 의식 {意識}함으로써 용서를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런 아들들은 모두 행복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며, **낙원**을 향해 상승하면서 늘_전진한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 했음]

nature of sin — is essential to religious growth and spiritual progress.

89:10.6 (985.1) The forgiveness of sin by Deity is the renewal of loyalty relations following a period of the human consciousness of the lapse of such relations as the consequence of conscious rebellion. The forgiveness does not have to be sought, only received as the consciousness of re-establishment of loyalty relations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And all the loyal sons of God are happy, service-loving, and ever-progressive in the Paradise ascent.

89:10.7 (985.2)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90편. 무속신앙--주술사와 사제

⇨ 089

유란시아 책

09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90편

무속신앙--주술사와 사제

섹션

소개

1. 최초의 무당--주술사
2. 무속 풍습
3.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의 견해
4. 무당이 장악한 약품
5. 사제와 제례식

소개

종교 관례의 진화는, 회유, 피하기, 쫓아내기, 강압, 화해, 그리고 달래기로부터, 제물, 죄값, 및 구속{救贖}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 종교 제례식을 치르는 기법은, 원시 종파 형태로부터, 주물숭배를 거쳐서, 마술과 이적{異蹟}으로 발전했으며; 초물질 영역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점점 복잡해짐으로써 제례식도 더 복잡하게 되자, 주술사, 무당, 및 사제들이 불가피하게 제례식을 지배하게 됐다.

원시인의 진보하는 개념에서, 결국 영 세계가 평범한 필사자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됐다. 인간 가운데 오직 예외적인 사람들만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영들은 특별한 남자나 여자의 말만 들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교는, 새로운 국면, 즉 점차 매개체에 의존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으며; 숭배 대상과 종교인 사이에, 주술사, 무당, 또는 사제가 반드시 개입됐다. 그리고 오늘날 조직된 **유란시아** 종교 신념 체계 대부분은 이런 수준에서 진화하는 발전을 거치고 있다.

PAPER 90

SHAMANISM — MEDICINE MEN
AND PRIEST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irst Shamans — The Medicine Men
2. Shamanistic Practices
3. The Shamanic Theory of Disease and Death
4. Medicine under the Shamans
5. Priests and Rituals

INTRODUCTION

90:0.1 (986.1) THE evolution of religious observances progressed from placation, avoidance, exorcism, coercion, conciliation, and propitiation to sacrifice, atonement, and redemption. The technique of religious ritual passed from the forms of the primitive cult through fetishes to magic and miracles; and as ritual became more complex in response to man's increasingly complex concept of the supermaterial realms, it was inevitably dominated by medicine men, shamans, and priests.

90:0.2 (986.2) In the advancing concepts of primitive man the spirit world was eventually regarded as being unresponsive to the ordinary mortal. Only the exceptional among humans could catch the ear of the gods; only the extraordinary man or woman would be heard by the spirits. Religion thus enters upon a new phase, a stage wherein it gradually becomes secondhanded; always does a medicine man, a shaman, or a priest intervene between the religionist and the object of worship. And today most Urantia systems of organized religious belief are passing through this level of evolutionary development.

진화 종교는 단순하고 온통 강력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데, 이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할 때,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쇄도한다. 결국 종교는, 전능한 사랑을 몹시 단순하게 깨닫는 경지를 성취하는데,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주의 아들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푸신다는 생각에 인간의 혼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혼을 휩쓴다. 그러나 종교적 진화의 시초와 완료 사이에 무당의 시대가 오랜 동안 개재했는데, 이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인, 통역자, 및 조정자로서 주재님께서 있다.

1. 최초의 무당--주술사

무당은 뛰어난 주술사(呪術師)였고, 예식을 맡은 주물인간이었고, 진화 종교의 모든 풍습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많은 집단의 경우에 무당이 전쟁터의 우두머리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무당은 때로 사제 역할을 했고, 심지어 사제-겸-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후대의 일부 부족들에는, 초기 무당-주술사(곧 선각자)와 후대에 나타난 무당-사제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무당의 직책이 세습됐다.

옛날에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영(靈)에 사로잡힌 탓으로 돌렸으므로, 두드러진 정신병 또는 육체적 기형(畸形)은, 주술사가 되는 자격조건을 성립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남자가 간질병이었고, 많은 여자가 히스테리 환자였으며, 이 두 유형은, 영과 마귀에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고대의 신통력의 상당 부분을 설명했다. 상당수의 초기 사제들은, 나중에 편집증 환자라고 일컬은 부류에 속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에서 속임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무당은 자신이 영에 사로잡혔다고 믿었다. 황홀경 또는 강경증(強硬症) 발작 상태에 스스로 빠져들 수 있는 여자는 강력한 여자 무당이 됐으며; 나중에는 그런 여자들이 선지자 또는 영매(靈媒)가 됐다. 강경증으로 인한 그들의 혼수 상태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대개 죽은 사람의 유령과 교통하는 데 관련됐다. 많은 여자 무당은 전문 춤꾼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무당이 자아-기만적이지는 않았으며; 교활한 사람과 유능한 사기꾼도 많았다. 그 직업이 발달하게 되자, 초보자에게는, 주술사 자격을 얻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하고 금욕하며 실습하는 봉사기간이 요구됐다. 무당은 전문 형태의 복장을 개발했고, 신비스럽게 보이는 행위를 꾸며냈다. 그들은 부족원들을 감동시키고 미혹할 수

90:0.3 (986.3) Evolutionary religion is born of a simple and all-powerful fear, the fear which surges through the human mind when confronted with the unknown, the inexplicable, and the incomprehensible. Religion eventually achieves the profoundly simple realization of an all-powerful love, the love which sweeps irresistibly through the human soul when awakened to the conception of the limitless affe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for the sons of the universe. But in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consummation of religious evolution, there intervene the long ages of the shamans, who presume to stand between man and God as intermediaries, interpreters, and intercessors.

1. THE FIRST SHAMANS — THE MEDICINE MEN

90:1.1 (986.4) The shaman was the ranking medicine man, the ceremonial fetishman, and the focus personality for all the practices of evolutionary religion. In many groups the shaman outranked the war chief,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church domination of the state. The shaman sometimes functioned as a priest and even as a priest-king. Some of the later tribes had both the earlier shaman-medicine men (seers) and the later appearing shaman-priests. And in many cases the office of shaman became hereditary.

90:1.2 (986.5) Since in olden times anything abnormal was ascribed to spirit possession, any striking mental or physical abnormality constituted qualification for being a medicine man. Many of these men were epileptic, many of the women hysteric, and these two types accounted for a good deal of ancient inspiration as well as spirit and devil possession. Quite a few of these earliest of priests were of a class which has since been denominated paranoiac.

90:1.3 (987.1) While they may have practiced deception in minor matters, the great majority of the shamans believed in the fact of their spirit possession. Women who were able to throw themselves into a trance or a cataleptic fit became powerful shamanesses; later, such women became prophets and spirit mediums. Their cataleptic trances usually involved alleged communications with the ghosts of the dead. Many female shamans were also professional dancers.

90:1.4 (987.2) But not all shamans were self-deceived; many were shrewd and able tricksters. As the profession developed, a novice was required to serve an apprenticeship of ten years of hardship and self-denial to qualify as a medicine man. The shamans developed a professional mode of dress and affected a mysterious conduct.

있는 어떤 신체 상태를 유발하려고 흔히 약품을 사용했다. 재빠른 손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였고, 교활한 사제들이 복화술{腹話術}을 처음 이용했다. 옛 무당 중에는 최면 상태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꼽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쳐다봄으로써 자기 최면을 유도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기와 속임수를 이용했지만, 집단으로서 그들의 명성은 결국 겉으로 나타난 업적에 달려 있었다. 무당이 자신의 이행업무에 실패했을 때,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위를 잃거나 살해됐다. 그래서 정직한 무당은 일찍 사라졌고; 오직 교활한 연기자만 살아남았다.

부족{部族} 직무의 독점 지휘권을 노인과 강자의 손에서 빼앗아, 교활한 자, 영리한 자, 및 선견지명 있는 자들의 손에 맡기게 한 것은 바로 무속신앙{巫俗信仰}이었다.

2. 무속 풍습

영{靈}을 불러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심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오늘날 교회 예식에서 옛 말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인간 종족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매우 일찍부터 초인적 존재의 도움을 추구했으며; 사람은 무당이 실제로 그런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다. 무당들은 활동할 때 암시의 큰 능력을 활용했지만, 그것은 거의 변함없이 소극적인 암시였으며; 아주 최근에서야 적극적인 암시 기법이 채택됐다. 전문적인 무당 직업이 발달하던 초기에, 그들은 비 내리기, 병 고치기, 범 죄자 찾아내기 등의 분야로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무속{巫俗} 주술사의 주요 기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삶 속에서 위험요소를 알아내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고대에 종교와 속세에서 쓰인 흑마술은, 사제, 선지자, 무당, 또는 주술사가 행할 때 백마술이라고 불렸다. 흑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요술쟁이, 마술사, 마법사, 마녀, 요술사, 마술쟁이, 강령술사, 및 점쟁이라고 불렸다. 시간이 흐르자,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현상은, 마술 또는 무당술책으로 분류됐다.

옛날의 비정규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영들이 행한다고 생각되는 요술은 마술에 포함됐으며; 무당술책은 부족이 인정하는 신들과 보통의 영들이 행한다는 기적과 관계됐다. 후대에 이르러서, 마녀는 마귀와 연결됐고,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종교적 편협성의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조성됐다. 마술은 많은 원시 부족에게 일종의 종교였다.

They frequently employed drugs to induce certain physical states which would impress and mystify the tribesmen. Sleight-of-hand feats were regarded as supernatural by the common folk, and ventriloquism was first used by shrewd priests. Many of the olden shamans unwittingly stumbled onto hypnotism; others induced autohypnosis by prolonged staring at their navels.

90:1.5 (987.3) While many resorted to these tricks and deceptions, their reputation as a class, after all, stood on apparent achievement. When a shaman failed in his undertakings, if he could not advance a plausible alibi, he was either demoted or killed. Thus the honest shamans early perished; only the shrewd actors survived.

90:1.6 (987.4) It was shamanism that took the exclusive direction of tribal affairs out of the hands of the old and the strong and lodged it in the hands of the shrewd, the clever, and the farsighted.

2. SHAMANISTIC PRACTICES

90:2.1 (987.5) Spirit conjuring was a very precise and highly complicated procedure, comparable to present-day church rituals conducted in an ancient tongue. The human race very early sought for superhuman help, for *revelation*; and men believed that the shaman actually received such revelations. While the shamans utilized the great power of suggestion in their work, it was almost invariably negative suggestion; only in very recent times has the technique of positive suggestion been employed.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ir profession the shamans began to specialize in such vocations as rain making, disease healing, and crime detecting. To heal diseases was not, however, the chief function of a shamanic medicine man; it was, rather, to know and to control the hazards of living.

90:2.2 (987.6) Ancient black art, both religious and secular, was called white art when practiced by either priests, seers, shamans, or medicine men. The practitioners of the black art were called sorcerers, magicians, wizards, witches, enchanters, necromancers, conjurers, and soothsayers. As time passed, all such purported contact with the supernatural was classified either as witchcraft or shamanicraft.

90:2.3 (987.7) Witchcraft embraced the *magic* performed by earlier, irregular, and unrecognized spirits; shamanicraft had to do with *miracles* performed by regular spirits and recognized gods of the tribe. In later times the witch became associated with the devil, and thus was the stage set for the many comparatively recent exhibitions of religious intolerance. Witchcraft was a religion with many primitive tribes.

무당은, 우연이 영들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었으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주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는 성향이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운수를 바라는 많은 경기(競技)에서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샘노래로 뽑아내기”라는 노랫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단 뽑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에서만 그럴 뿐이다. 원시인에게 심각한 일이던 것이 변해서 오늘날 아이들의 오락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주술사(呪術師)는, “너희가 뿔나무 꼭대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더 분발해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적과 징조에 커다란 신뢰감을 불어넣었다. 무당은 종족의 역사에서 매우 초기부터 별에 관심을 쏟았다. 원시 점성술은 범세계적인 믿음과 풍습이었으며;꿈 해몽 역시 널리 퍼졌다. 이 모든 것에 뒤이어, 죽은 자의 영(靈)과 대화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과민증의 여자 무당들이 곧 출현했다.

비를 내리게 하거나 날씨를 조정한다는 무당은, 아주 옛날에 기원됐음에도, 여러 시대를 거쳐서 계속 유지돼 왔다. 심각한 가뭄은 옛 농부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었으며;날씨를 통제하는 일은 고대의 많은 마술의 목적이었다. 문명화된 인간도 여전히 날씨를 평범한 대화 주제로 삼고 있다. 옛 사람은 모두, 무당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실패할 때 그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못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가이사들이 점성가를 여러 번 추방시켰지만, 그들이 늘 다시 돌아온 것은, 대중이 그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전히 추방될 수 없었고, 심지어 기원후 16세기에도 **서양**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이 점성술을 신봉했다. 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행운 또는 불운의 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평행 현상이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의 발생을 결정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경솔하게 믿는 자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즐겨 찾는다.

그리스인은 신탁(神託)의 충고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고, **중국인**은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마술을 이용했으며, **인도**에서는 무속신앙이 번성했고, 중앙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무속신앙이 공공연히 지속되고 있다. 그 풍습을 세계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오직 최근의 일이다.

때때로, 선지자와 선생이 출현해서, 무속신앙을 비난하고 가면을 벗기려 했다. 심지어 사라져가는 홍색인조차 그런 선지자들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샤우니 텐스콰타와**는 1,808년에 태양의 일식(日蝕)을 예언했고 백색인의 악행을 비난했다. 오랜 기간의 진화 역사에서, 많은

90:2.4 (987.8) The shamans were great believers in the mission of chance as revelatory of the will of the spirits; they frequently cast lots to arrive at decisions. Modern survivals of this proclivity for casting lots are illustrated, not only in the many games of chance, but also in the well-known “counting-out” rhymes. Once, the person counted out must die; now, he is only *it* in some childish game. That which was serious business to primitive man has survived as a diversion of the modern child.

90:2.5 (988.1) The medicine men put great trust in signs and omens, such as, “When you hear the sound of a rustling in the tops of the mulberry trees, then shall you bestir yourself.”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the race the shamans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stars. Primitive astrology was a world-wide belief and practice; dream interpreting also became widespread. All this was soon followed by the appearance of those temperamental shamanesses who professed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spirits of the dead.

90:2.6 (988.2) Though of ancient origin, the rain makers, or weather shamans, have persisted right on down through the ages. A severe drought meant death to the early agriculturists; weather control was the object of much ancient magic. Civilized man still makes the weather the common topic of conversation. The olden peoples all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shaman as a rain maker, but it was customary to kill him when he failed, unless he could offer a plausible excuse to account for the failure.

90:2.7 (988.3) Again and again did the Caesars banish the astrologers, but they invariably returned because of the popular belief in their powers. They could not be driven out, and even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Christ the directors of Occidental church and state were the patrons of astrology. Thousands of supposedly intelligent people still believe that one may be born under the domination of a lucky or an unlucky star; that the juxtaposition of the heavenly bodies determines the outcome of various terrestrial adventures. Fortunetellers are still patronized by the credulous.

90:2.8 (988.4) The Greeks believed in the efficacy of oracular advice, the Chinese used magic as protection against demons, shamanism flourished in India, and it still openly persists in central Asia. It is an only recently abandoned practice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90:2.9 (988.5) Ever and anon, true prophets and teachers arose to denounce and expose shamanism. Even the vanishing red man had such a prophet within the past hundred years, the Shawnee Tenskwatawa, who predicted the eclipse of the sun in 1806 and denounced the vices of the

참된 선생이 여러 부족과 종족 가운데 출현했다. 각 시대의 무당 또는 사제가 대중{大衆} 교육을 반대하고 과학적 진보를 훼방하려 애쓰더라도,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참된 선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옛 무당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와 신의 뜻을 보존하는 자로서의 명성을, 여러 면에서 사악한 방식으로 구축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이름을 지어줬으며;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들은 모든 장례 예식을 주관했고, 죽은 자가 영{靈}나라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공식으로 선포했다.

무속{巫俗} 사제와 주술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영들에게 바치는 다양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큰 부자{富者}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어떤 무당이 자기 부족의 물질 재산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자가 죽게 되면, 어떤 공공 단체 또는 자선 단체와 무당이 그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풍습은 **티벳**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용되는데, 거기서는 남자 인구의 절반이 비생산적인 이 부류에 속해 있다.

무당은 옷을 잘 입었고, 대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 최초의 귀족에 해당했는데, 부족의 모든 제약 조건에서 제외됐다. 그들은 저급한 정신과 도덕을 소유한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들은 경쟁자를 마녀 또는 요술쟁이로 몰아서 탄압했고, 우두머리나 왕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원시인은 무당을 필요악{必要惡}으로 여겼으며; 그를 두려워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초기의 사람은 지식을 높이 평가했으며; 지혜를 존중하고 그 값을 지불했다. 무당은 대개 사기꾼이었지만, 무속 신앙을 공경한 것은, 그 종족의 진화에서 지혜에 비싼 값을 치렀음을 잘 보여준다.

3.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의 견해

고대인은 자신과 물질 환경이 유령의 변덕과 영의 취미에 직접 반응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종교가 오로지 물질 용건에만 관련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현대인은 자신의 물질 문제에 직접 대처하며; 정신이 총명하게 조종함에 따라서 물질이 반응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원시인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영역의 에너지와 생명을 변경하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지만; 시공 우주에 대한 납득이 제한됐기 때문에, 유령, 영, 및 신들이 몸소 즉시 생명과 물질을 낱알이 통제하는데 관여한다고 믿게 됐으며, 이런 초인적 대행자의 호감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치에 맞게 노력

white man. Many true teachers have appeared among the various tribes and races all through the long ages of evolutionary history. And they will ever continue to appear to challenge the shamans or priests of any age who oppose general education and attempt to thwart scientific progress.

90:2.10 (988.6) In many ways and by devious methods the olden shamans established their reputations as voices of God and custodians of providence. They sprinkled the newborn with water and conferred names upon them; they circumcised the males. They presided over all burial ceremonies and made due announcement of the safe arrival of the dead in spiritland.

90:2.11 (988.7) The shamanic priests and medicine men often became very wealthy through the accretion of their various fees which were ostensibly offerings to the spirits. Not infrequently a shaman would accumulate practically all the material wealth of his tribe. Upon the death of a wealthy man it was customary to divide his property equally with the shaman and some public enterprise or charity. This practice still obtains in some parts of Tibet, where one half the male population belongs to this class of nonproducers.

90:2.12 (989.1) The shamans dressed well and usually had a number of wives; they were the original aristocracy, being exempt from all tribal restrictions. They were very often of low-grade mind and morals. They suppressed their rivals by denominating them witches or sorcerers and very frequently rose to such positions of influence and power that they were able to dominate the chiefs or kings.

90:2.13 (989.2) Primitive man regarded the shaman as a necessary evil; he feared him but did not love him. Early man respected knowledge; he honored and rewarded wisdom. The shaman was mostly fraud, but the veneration for shamanism well illustrates the premium put upon wisdom in the evolution of the race.

3. THE SHAMANIC THEORY OF DISEASE AND DEATH

90:3.1 (989.3) Since ancient man regarded himself and his material environment as being directly responsive to the whims of the ghosts and the fancies of the spirits, it is not strange that his religion should have been so exclusively concerned with material affairs. Modern man attacks his material problems directly; he recognizes that matter is responsive to the intelligent manipulation of mind. Primitive man likewise desired to modify and even to control the life and energies of the physical domains; and since his limited comprehension of the cosmos

을 기울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 종파에 있는 설명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들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파(宗派)의 예식은, 원시인 자신이 살고 있는 물질세계를 통제해 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원시인은, 목숨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질병과 죽음 자체가 처음부터 영적 현상으로 간주됐으므로, 무당은 주술사와 사제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의사와 외과의사의 일도 해야만 했다.

원시 정신은 진상(真相)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논리적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질병과 죽음을 볼 때, 이것을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려 하며, 무당과 과학자는 자신이 이해함에 따라서, 불행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해 왔다:

1. 유령 -- 영의 직접 영향. 질병과 죽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일찍 제기된 진보된 가설은, 혼이 육체에서 빠져 나오도록 영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 혼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고대인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령의 심술궂은 행동을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병든 자를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됐음에도, 그들은 앓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켰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2. 폭력 -- 명백한 원인. 어떤 사고나 죽음의 원인은 너무 쉽게 판명됐으므로, 유령의 작용으로 여겨지는 범주에서 일찍부터 제외됐다. 전쟁, 동물과의 사투, 그리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작용으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연되는 치료, 또는 심지어 “자연스런” 원인으로 발생해도, 상처가 감염되는 것은 여전히 영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눈에 보이는 당연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 유령들이 그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여전히 생각했다.

오늘날, 누군가 폭력이 아닌 원인으로 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사가 죄 있는 상대방을 지목한다.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으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아이를 즉시 목 졸라 죽였다.

3. 마술 -- 적들의 영향력. 대부분의 질병은, 마녀술책에 걸림으로써, 즉 흉안과 마술적 활 거누기 행위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여겼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금도

led him to the belief that ghosts, spirits, and gods were personally and immediately concerned with the detailed control of life and matter, he logically directed his efforts to winning the favor and support of these superhuman agencies.

90:3.2 (989.4) Viewed in this light, much of the inexplicable and irrational in the ancient cults is understandable. The ceremonies of the cult were primitive man's attempt to control the material world in which he found himself. And many of his efforts were directed to the end of prolonging life and insuring health. Since all diseases and death itself were originally regarded as spirit phenomena, it was inevitable that the shamans, while functioning as medicine men and priests, should also have labored as doctors and surgeons.

90:3.3 (989.5) The primitive mind may be handicapped by lack of facts, but it is for all that logical. When thoughtful men observe disease and death, they set about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se vis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understanding, the shamans and the scientists have propounded the following theories of affliction:

90:3.4 (989.6) 1. Ghosts — direct spirit influences. The earliest hypothesis advanced in explanation of disease and death was that spirits caused disease by enticing the soul out of the body; if it failed to return, death ensued. The ancients so feared the malevolent action of disease-producing ghosts that ailing individuals would often be deserted without even food or water. Regardless of the erroneous basis for these beliefs, they did effectively isolate afflicted individuals and prevent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

90:3.5 (989.7) 2. Violence — obvious causes. The causes for some accidents and deaths were so easy to identify that they were early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ghost action. Fatalities and wounds attendant upon war, animal combat, and other readily identifiable agencies were considered as natural occurrences. But it was long believed that the spirits were still responsible for delayed healing or for the infection of wounds of even “natural” causation. If no observable natural agent could be discovered, the spirit ghosts were still held responsible for disease and death.

90:3.6 (990.1) Today, in Africa and elsewhere may be found primitive peoples who kill someone every time a nonviolent death occurs. Their medicine men indicate the guilty parties. If a mother dies in childbirth, the child is immediately strangled — a life for a life.

90:3.7 (990.2) 3. Magic — the influence of enemies. Much sickness was thought to be caused by bewitchment, the action of the evil eye and the magic pointing bow. At one time it was really dangerous to point a finger at anyone; it is still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애매한 질병이나 죽음이 발생된 경우에, 고대인은 공식으로 검시하고, 시신을 해부하고, 무엇을 발견하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결정하곤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마녀술책의 책임으로 돌리곤 했고,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마녀를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 옛날 검시관의 검시가, 마녀라고 생각되는 자의 생명을 많이 살렸다.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부족원이 자기 스스로 마녀술책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되지 않았다.

4. 죄 -- 금기{禁忌} 위반에 대한 형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 질병은 개인이나 종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다. 이런 수준의 진화를 겪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널리 퍼진 견해는, 누군가 금기를 범하지 않는 한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속에 계시는 **전능자의 화살**”로 간주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중국인**과 **메소포타미아인**은 질병을 악한 귀신이 작용한 결과로 간주했으며, **갈대아인**은 또한 별들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신이 진노한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는 이런 견해는, 문명화된 것으로 평판 나 있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집단에서 여전히 우세하다.

5. 자연발생적 원인. 에너지, 물질, 및 생명을 다루는 물리적 영역에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라는 물질적 비밀을 인류가 깨우치기까지,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아담선**의 교훈을 전통으로 간직했던 고대 **그리스인**은, 질병이 자연발생적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다. 과학 시대의 전개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케케묵은 견해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열병{熱病}은 초자연적 부조화의 범주에서 제외된 최초의 인간 질병 가운데 하나였고, 인간 정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가뒀던 무지의 족쇄를, 과학시대가 점진적으로 파괴해 왔다. 노화 현상과 전염병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치명적인 고난을 직접 일으키는 가해자라고 여긴, 유령, 영, 및 신들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화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진화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을 미신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며, 이것은 **하나님** 개념이 생기는 발판이다. 그리고 **신격**에 대한 발전된 이해심의 탄생을 목격했으므로, 바로 이 진화 기법이, 계시의 협조 작용을 통해서, 그런 사고{思考}의 힘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이마지해온 그 발판을 냉혹하게 제거시킬 것이다.

4. 무당이 장악한 약품

고대 사람들의 생활은 온통 질병 예방법이었

regarded as ill-mannered to point. In cases of obscure disease and death the ancients would hold a formal inquest, dissect the body, and settle upon some finding as the cause of death; otherwise the death would be laid to witchcraft, thus necessitating the execution of the witch responsible therefor. These ancient coroner's inquests saved many a supposed witch's life. Among some it was believed that a tribesman could die as a result of his own witchcraft, in which event no one was accused.

90:3.8 (990.3) 4. Sin — punishment for taboo violation. In comparatively recent times it has been believed that sickness is a punishment for sin, personal or racial. Among peoples traversing this level of evolution the prevailing theory is that one cannot be afflicted unless one has violated a taboo. To regard sickness and suffering as “arrows of the Almighty within them” is typical of such beliefs. The Chinese and Mesopotamians long regarded disease as the result of the action of evil demons, although the Chaldeans also looked upon the stars as the cause of suffering. This theory of disease as a consequence of divine wrath is still prevalent among many reputedly civilized groups of Urantians.

90:3.9 (990.4) 5. Natural causation. Mankind has been very slow to learn the material secrets of the inter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in the physical domains of energy, matter, and life. The ancient Greeks, having preserved the traditions of Adamson's teachings, were among the first to recognize that all disease is the result of natural causes. Slowly and certainly the unfolding of a scientific era is destroying man's age-old theories of sickness and death. Fever was one of the first human ailments to be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supernatural disorders, and progressively the era of science has broken the fetters of ignorance which so long imprisoned the human mind. An understanding of old age and contagion is gradually obliterating man's fear of ghosts, spirits, and gods as the personal perpetrators of human misery and mortal suffering.

90:3.10 (990.5) Evolution unerringly achieves its end: It imbues man with that superstitious fear of the unknown and dread of the unseen which is the scaffolding for the God concept. And having witnessed the birth of an advanced comprehension of Deity, through the co-ordinate action of revelation, this same technique of evolution then unerringly sets in motion those forces of thought which will inexorably obliterate the scaffolding, which has served its purpose.

4. MEDICINE UNDER THE SHAMANS

90:4.1 (990.6) The entire life of ancient men was

으며;그들의 종교는 질병 방지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들어있는 오류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전심으로 노력했으며;자신의 치료 방법을 무한히 신뢰했고, 그런 신념 자체가 강력한 치료제였다.

이런 고대의 한 무당의 어리석은 보살핌을 받고서 낫는 데 필요한 신념은 결국, 후일에 비과학적 질병 치료에 종사하는 어떤 후계자의 손으로 치료받는 체험에 요구되는 신념과,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 없었다.

원시적인 부족일수록 환자를 크게 두려워했으며, 환자를 오랜 세월 주의 깊게 피하고, 부끄럽게도 방치했다. 무당술책이 진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동의하는 사제와 주술사들이 생겼을 때, 인도주의적으로는 큰 진보가 이뤄졌다. 그 다음부터는, 질병을 일으킨 유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이 소리치는 일을 도와주려고, 환자의 방에 전체 씨족이 모여드는 관습이 생겼다. 여자가 진찰하는 무당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한편 남자는 치료를 담당하곤 했다. 질병을 진단하는 일반적 방법은 동물의 내장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노래 부르기, 소리치기, 손 얹기, 환자에게 숨 내뿜기, 그리고 기타 여러 기법이 질병 치료에 동원됐다. 후대에는 신전에서 잠자는 방법이 널리 퍼졌고, 자는 동안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주술사는 결국 신전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실제 외과 수술을 시도하게 됐으며;처음에 한 수술 중에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이 도망가도록,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것이 있었다. 남자 무당은 골절상과 뺨 것을 치료하고, 부스럼과 종기를 췌서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며;여자 무당은 산과술에 정통하게 됐다.

감염되거나 손상 입은 신체 부위에 마술적인 어떤 것을 문지르고, 주문을 멀리 던지면서, 체험상 치료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였다. 누구든지 버려진 주문을 우연히 만지면, 그 사람이 감염되거나 손상을 입는다고 믿었다. 약초 또는 기타 실제 약품이 소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안마하는 방법은, 주문 외우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됐는데, 몸을 주물러서 영을 쫓아내려는 것이었으며, 그 전에는 현대인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약품을 문질러서 침투되게 하려고 시도했다. 사혈(瀉血)과 함께, 병 걸린 부위에서 피를 짜거나 빨아내는 방법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됐다.

물은 강력한 주물이었으므로 많은 질병 치료제로 이용됐다. 병을 일으키는 영은 땀을 흘림으로써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증기 목욕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겼으며;천연 온천(溫泉)이 곧 원시적 건강 수단으로 각광 받았다. 초기의 사람은 열을 가함으로써 통증이 경

prophylactic; their religion was in no small measure a technique for disease prevention. And regardless of the error in their theories, they were wholehearted in putting them into effect; they had unbounded faith in their methods of treatment, and that, in itself, is a powerful remedy.

90:4.2 (991.1) The faith required to get well under the foolish ministrations of one of these ancient shamans was, after all, not materially different from that which is required to experience healing at the hands of some of his later-day successors who engage in the nonscientific treatment of disease.

90:4.3 (991.2) The more primitive tribes greatly feared the sick, and for long ages they were carefully avoided, shamefully neglected. It was a great advance in humanitarianism when the evolution of shamancraft produced priests and medicine men who consented to treat disease. Then it became customary for the entire clan to crowd into the sickroom to assist the shaman in howling the disease ghosts away. It was not uncommon for a woman to be the diagnosing shaman, while a man would administer treatment. The usual method of diagnosing disease was to examine the entrails of an animal.

90:4.4 (991.3) Disease was treated by chanting, howling, laying on of hands, breathing on the patient, and many other techniques. In later times the resort to temple sleep, during which healing supposedly took place, became widespread. The medicine men eventually essayed actual surgery in connection with temple slumber; among the first operations was that of trephining the skull to allow a headache spirit to escape. The shamans learned to treat fractures and dislocations, to open boils and abscesses; the shamanesses became adept at midwifery.

90:4.5 (991.4) It was a common method of treatment to rub something magical on an infected or blemished spot on the body, throw the charm away, and supposedly experience a cure. If anyone should chance to pick up the discarded charm, it was believed he would immediately acquire the infection or blemish. It was a long time before herbs and other real medicines were introduced. Massage wa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incantation, rubbing the spirit out of the body, and was preceded by efforts to rub medicine in, even as moderns attempt to rub liniments in. Cupping and sucking the affected parts, together with bloodletting, were thought to be of value in getting rid of a disease-producing spirit.

90:4.6 (991.5) Since water was a potent fetish, it was utilized in the treatment of many ailments. For long it was believed that the spirit causing the sickness could be eliminated by sweating. Vapor baths were highly regarded; natural hot springs soon blossomed as primitive health resorts. Early man

감되는 것을 발견했으며;햇빛, 싱싱한 동물 내장, 뜨겁게 달군 진흙, 뜨거운 돌맹이가 이용됐고, 이런 방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여전히 활용된다. 영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울동이 실행됐으며;단조로운 북소리가 널리 쓰였다.

어떤 민족 가운데서는, 영과 동물 사이에 꾸민 사악한 음모로 질병이 발생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효험 있는 식물 치료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홍색인은 만병통치약에 해당하는 식물 요법을 특히 신봉했는데;그 식물을 뽑을 때에는, 뿌리가 있었던 구멍에 피 한 방울을 반드시 떨어뜨렸다.

금식, 식이요법{食餌療法}, 및 반대자극제들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확실히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분비물이 매우 효험 있다고 생각했으며;따라서 처음에는 피와 오줌을 약품으로 활용했고, 뿌리 및 다양한 소금이 곧 첨부됐다. 무당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역겨운 냄새와 고약한 맛의 약품으로 인해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믿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매우 일찍부터 틀에 박힌 치료법이 됐으며, 익히지 않은 코코아와 키니네의 효험은 약학{藥學}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물에 속했다.

그리스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을 처음 발달시켰다. **그리스인**과 **이집트인**은 모두, **유프라테스** 강 유역 사람들로부터 의학 지식을 받아들였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매우 초기 약품이었으며;**수메르인**은 비버 기름과 아편을 사용했다. 효과적인 이런 고대의 치료 방법 중에서 다수는,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 효능을 잃어버렸는데;미신과 기만행위의 효과적 실행에는 반드시 은밀함이 근본 요소였다. 오직 사실과 진리만이, 온전히 납득시키는 빛을 추구하며, 과학적 연구로 얻은 조명과 계몽을 기뻐한다.

5. 사제와 제례식

제례식{祭禮式}의 본질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있었으며;미개인 가운데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했다. 제례식이 정확하게 이뤄질 때에만, 영들을 강압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제례식에 잘못이 있게 되면, 신들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다. 그러므로, 더디게 진화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례식의 기법**이 그 효력에서 결정적 요소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초기 시대의 무당이 곧 사제계층{司祭階層}으로 발전하여, 제례식의 신중한 실행을 지시하도록 훈련받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 그리하여 수만 년 동안, 끊임없는 제례식들이 공동체를 뒤흔들고 문명의 발전에 화를 미쳤는데, 생활에서 행위마다, 종족의 이행업무마다 그 위에 건디기 힘든 짐을 부과했다.

제례식은 관습을 신성하게 만드는 기법이었

discovered that heat would relieve pain; he used sunlight, fresh animal organs, hot clay, and hot stones, and many of these methods are still employed. Rhythm was practiced in an effort to influence the spirits; the tom-toms were universal.

90:4.7 (991.6) Among some people disease was thought to be caused by a wicked conspiracy between spirits and animals. This gave rise to the belief that there existed a beneficent plant remedy for every animal-caused disease. The red men were especially devoted to the plant theory of universal remedies; they always put a drop of blood in the root hole left when the plant was pulled up.

90:4.8 (991.7) Fasting, dieting, and counterirritants were often used as remedial measures. Human secretions, being definitely magical, were highly regarded; blood and urine were thus among the earliest medicines and were soon augmented by roots and various salts. The shamans believed that disease spirits could be driven out of the body by foul-smelling and bad-tasting medicines. Purging very early became a routine treatment, and the values of raw cocoa and quinine were among the earliest pharmaceutical discoveries.

90:4.9 (992.1) The Greeks were the first to evolve truly rational methods of treating the sick. Both the Greeks and the Egyptians received their medical knowledge from the Euphrates valley. Oil and wine was a very early medicine for treating wounds; castor oil and opium were used by the Sumerians. Many of these ancient and effective secret remedies lost their power when they became known; secrecy has always been essential to the successful practice of fraud and superstition. Only facts and truth court the full light of comprehension and rejoice in the illumination and enlightenment of scientific research.

5. PRIESTS AND RITUALS

90:5.1 (992.2) The essence of the ritual is the perfection of its performance; among savages it must be practiced with exact precision. It is only when the ritual has been correctly carried out that the ceremony possesses compelling power over the spirits. If the ritual is faulty, it only arouses the anger and resentment of the gods. Therefore, since man's slowly evolving mind conceived that the *technique of ritual* was the decisive factor in its efficacy, it was inevitable that the early shamans should sooner or later evolve into a priesthood trained to direct the meticulous practice of the ritual. And so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endless rituals have hampered society and cursed civilization, have been an intolerable burden to every act of life, every racial undertaking.

90:5.2 (992.3) Ritual is the technique of sanctifying

으며;신화를 만들고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과 종교 관습의 보존에 기여했다. 또 한편, 제례식 자체가 신화로부터 생겨났다. 제례식은 처음에는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됐고, 마침내 종교 예식절차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획득하게 됐다. 제례식은, 기도, 춤, 및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으로--또는 양쪽에서-- 실행할 수 있다.

단어들이 제례식의 한 부분이 됐는데, 아멘과 셀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다. 맹세하는 습관,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은, 전에 제례식에서 거룩한 이름들을 반복하던 행위가 타락된 것이다. 신성시되는 성지를 순례하는 행위는 매우 오래된 의식(儀式)이다. 그 다음에 의식은, 정화, 씻음, 그리고 성화(聖化)라는 정교한 예식으로 발전했다. 원시 부족의 비밀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은 실제로 미숙한 종교 제례였다. 옛 시대의 신비종파의 숭배 기법은 축적된 여러 종교 제례식을 길게 이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제례식은 결국, 현대 유형의 사회 예식절차와 종교적 경배, 기도가 포함된 예배, 노래, 교독(交讀), 그리고 다른 여러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영적 헌신행위로 발전했다.

사제는 무당으로부터, 신탁(神託)을 전하는 자, 점쟁이,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날씨조정자, 종교 유품을 지키는 자, 신전 관리인, 그리고 사전을 점치는 자 등을 거쳐서, 종교적 경배를 실제로 지휘하는 자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 그 직책은 결국 세습됐고;계속 이어지는 사제 신분계층이 생겨났다.

종교가 진화되자, 사제는 자신의 타고난 재주 또는 특별히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일부는 가수, 일부는 기도하는 자, 또 어떤 이들은 제물 바치는 자가 됐고;나중에는 연설자--곧 설교자--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종교가 제도화되자, 이 사제들은 자신이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는, 옛 언어로 종교 제례식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마술적인 잡다한 골동품을 이용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놀라게 함으로써 경배자를 미혹하여, 자신의 경건성과 권위를 증진시키려고 항상 애써 왔다. 이 모든 것에서 심각한 위험성은, 제례식이 종교의 대용품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제계층은,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영적 진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문명을 안정시키고 특정한 종류의 문화를 증진시키기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제례식의 지휘자 역할을 중지해 왔으며, 관심을 신학에--곧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

여러 종족의 목에 사제들이 멍들을 매달아 왔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참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높고 더 향상된 실체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

custom; ritual creates and perpetuates myth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social and religious customs. Again, ritual itself has been fathered by myths. Rituals are often at first social, later becoming economic and finally acquiring the sanctity and dignity of religious ceremonial. Ritual may be personal or group in practice — or both — as illustrated by prayer, dancing, and drama.

90:5.3 (992.4) Words become a part of ritual, such as the use of terms like amen and selah. The habit of swearing, profanity, represents a prostitution of former ritualistic repetition of holy names. The making of pilgrimages to sacred shrines is a very ancient ritual. The ritual next grew into elaborate ceremonies of purification, cleansing, and sanctification. The initiation ceremonies of the primitive tribal secret societies were in reality a crude religious rite. The worship technique of the olden mystery cults was just one long performance of accumulated religious ritual. Ritual finally developed into the modern types of social ceremonials and religious worship, services embracing prayer, song, responsive reading, and other individual and group spiritual devotions.

90:5.4 (992.5) The priests evolved from shamans up through oracles, diviners, singers, dancers, weathermakers, guardians of religious relics, temple custodians, and foretellers of events, to the status of actual directors of religious worship. Eventually the office became hereditary; a continuous priestly caste arose.

90:5.5 (992.6) As religion evolved, priests began to specialize according to their innate talents or special predilections. Some became singers, others prayers, and still others sacrificers; later came the orators — preachers. And when religion became institutionalized, these priests claimed to "hold the keys of heaven."

90:5.6 (992.7) The priests have always sought to impress and awe the common people by conducting the religious ritual in an ancient tongue and by sundry magical passes so to mystify the worshipers as to enhance their own piety and authority. The great danger in all this is that the ritual tends to become a substitute for religion.

90:5.7 (993.1) The priesthoods have done much to delay scientific development and to hinder spiritual progress, but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civilization and to the enhancement of certain kinds of culture. But many modern priests have ceased to function as directors of the ritual of the worship of God, having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ology — the attempt to define God.

90:5.8 (993.2) It is not denied that the priests have been a millstone about the neck of the races, but the true religious leaders have been invaluable in pointing the way to higher and better realities.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90:5.9 (993.3)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1편. 기도의 진화

⇨ 090

유란시아 책

09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1편
기도의 진화

섹션

소개

1. 원시적인 기도
2. 진화하는 기도
3. 기도와 또 하나의 자아
4. 윤리적인 기도
5. 기도의 사회적 영향
6. 기도의 범위
7. 신비주의, 황홀경, 영감
8. 개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9.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PAPER 91
THE EVOLUTION OF PRAYER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Prayer
2. Evolving Prayer
3. Prayer and the Alter Ego
4. Ethical Praying
5. Social Repercussions of Prayer
6. The Province of Prayer
7.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8. Praying as a Personal Experience
9. Conditions of Effective Prayer

소개

기도는, 종교의 한 매개체로서, 종교성이 없는 예전의 독백과 문답식 표현으로부터 진화했다. 원시인이 자아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서, 필연적인 당연한 결과로, 남을 의식함, 즉 사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겼다.

초기의 기도 형태는 **신격**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표현은, 너희가 어떤 중요한 이행 업무에 착수하면서 “내 성공을 빌어 달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했다. 원시인은 마술에 노예가 됐으며; 행운과 불운이 인생의 모든 용건과 결부됐다. 행운을 비는 이런 간구가 처음에는 혼잣말이었다--곧 마술 부리는 자가 생각을 크게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그 다음에는, 행운을 믿는 이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윽고 전체 씨족 또는 부족을 참여시키는, 어떤 형태의 예식이 거행되곤 했다.

유행과 영의 개념이 진화했을 때, 이 간구는 초인적인 연설이 됐고, 신들을 의식하게 되자, 그런 표현은 참된 기도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이것

INTRODUCTION

91:0.1 (994.1) PRAYER, as an agency of religion, evolved from previous nonreligious monologue and dialogue expressions. With the attainment of self-consciousness by primitive man there occurred the inevitable corollary of other-consciousness, the dual potential of social response and God recognition.

91:0.2 (994.2) The earliest prayer forms were not addressed to Deity. These expressions were much like what you would say to a friend as you entered upon some important undertaking, “Wish me luck.” Primitive man was enslaved to magic; luck, good and bad, entered into all the affairs of life. At first, these luck petitions were monologues — just a kind of thinking out loud by the magic server. Next, these believers in luck would enlist the support of their friends and families, and presently some form of ceremony would be performed which included the whole clan or tribe.

91:0.3 (994.3) When the concepts of ghosts and spirits evolved, these petitions became superhuman in address, and with the

에 해당하는 한 예로,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영들 및 초인적 인물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보다, 원시 종교의 기도가 먼저 생겼다.

종교적 자각이 생기기 전에 초기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의 **토다** 부족은 특별한 대상 없이 기도하는 관습을 지금도 지킨다. 오직, **토다**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들의 퇴보하는 종교의 이런 원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토다** 부족 가운데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행하는 오늘날 제례식은 종교 예식과 상관없는데, 이런 비인격적 기도가 어떤 사회적, 도덕적, 또는 영적 가치든지 보존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생기기 전의 기도는, **멜라네시아인**의 {초자연적 힘을 믿는} 마나 풍습, **아프리카 피그미**의 {밀림과 동일시되는} 우다 믿음, 그리고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만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 마니투 미신의 요소였다. **아프리카**의 **바간다** 부족들은, 최근에야 마나 수준의 기도에서 탈피했다. 이런 초기 진화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지역 및 민족의-- 신{神}들, 즉 주물, 부적, 유령, 통치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다.

1. 원시적인 기도

초기 진화 종교의 기능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는,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종교의 이런 사명을, 사람들이 의식{意識}하면서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명은 주로 기도의 역할로 성취된다. 기도하는 습관은, 어떤 집단이든지 더 높은 가치를 이렇게 확고히 보존하려는(즉 실현시키려는) 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수고를 의미한다. 기도가 옹호하지 않는다면, 모든 거룩한 날은 단순한 공휴일 상태로 재빨리 전환될 것이다.

매개체 중에 으뜸은 기도인데, 종교와 그 매개체는, 오직 일반적인 사회 인식,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 인식된 그런 가치기준과 연합돼 있다. 따라서, 원시인이 더 열등한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순전히 이기적인 야망을 달성하려고 애쓴다면, 그는 종교의 위로와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개인이 반{反}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지 이루려고 모색한다면, 그는 비종교적 마술의 협력을 추구하고, 요술쟁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기도의 도움을 뺏기게 된다. 따라서 기도는 매우 옛날부터, 사회적인 진화,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 달성을 강력하게 증진시키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원시인의 정신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다. 초기의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기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단순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은, 양식, 주거지,

consciousness of gods, such expressions attained to the levels of genuine prayer. As an illustration of this, among certain Australian tribes primitive religious prayers antedated their belief in spirits and superhuman personalities.

91:0.4 (994.4) The Toda tribe of India now observes this practice of praying to no one in particular, just as did the early peoples before the times of religious consciousness. Only, among the Todas, this represents a regression of their degenerating religion to this primitive level. The present-day rituals of the dairymen priests of the Todas do not represent a religious ceremony since these impersonal prayers do not contribute anything to the conservation or enhancement of any social, moral, or spiritual values.

91:0.5 (994.5) Prereligious praying was part of the mana practices of the Melanesians, the oudah beliefs of the African Pygmies, and the manitou superstition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The Baganda tribes of Africa have only recently emerged from the mana level of prayer. In this early evolutionary confusion men pray to gods — local and national — to fetishes, amulets, ghosts, rulers, and to ordinary people.

1. PRIMITIVE PRAYER

91:1.1 (994.6) The function of early evolutionary religion is to conserve and augment the essenti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values which are slowly taking form. This mission of religion is not consciously observed by mankind, but it is chiefly effected by the function of prayer. The practice of prayer represents the unintended, but nonetheless personal and collective, effort of any group to secure (to actualize) this conservation of higher values. But for the safeguarding of prayer, all holy days would speedily revert to the status of mere holidays.

91:1.2 (995.1) Religion and its agencies, the chief of which is prayer, are allied only with those values which have general social recognition, group approval. Therefore, when primitive man attempted to gratify his baser emotions or to achieve unmitigated selfish ambitions, he was deprived of the consolation of religion and the assistance of prayer. If the individual sought to accomplish anything antisocial, he was obliged to seek the aid of nonreligious magic, resort to sorcerers, and thus be deprived of the assistance of prayer. Prayer, therefore, very early became a mighty promoter of social evolution, mor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91:1.3 (995.2) But the primitive mind was neither logical nor consistent. Early men did not perceive that material things were not the province of prayer. These simple-minded souls reasoned that

비, 사냥감, 및 기타 물질 재화가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했으며, 그리하여 이런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도를 오용하는 요인이 됐지만, 윤리에 맞는 사회 활동으로 이 물질적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에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기도의 그런 타락은, 한 민족의 영적 가치를 저하시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윤리적 사회관행을 직접 향상시켰다.

가장 원시적인 정신 유형의 경우에는 기도가 혼잣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대화형태가 됐고, 집단 경배 수준으로 확장됐다. 기도는, 원시 종교에서 마술 이전에 있었던 주문이 진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덕적 이상(理想)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정 많은 권능 또는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는 수준에 인간 정신이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런 영향력이 초인적이라는 것과, 자아 의식하는 인간 및 동료 필사자의 자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역의 기능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기 전에는, 참된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는 정령(精靈)숭배와 거의 관련이 없지만, 그런 믿음은 싹트는 종교적 감상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종교와 정령 숭배가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두려움이라는 원시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필사자에게는, 모든 기도가, 죄에 대한 병적인 감각, 즉 실제적이든지 공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의식에 대해서 위험할 정도로 골똘하게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기도에 바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도를 잘못 이용하고 왜곡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무지, 미신, 정형화(定型化), 생명력 상실, 유물론, 및 광신에 있다.

2. 진화하는 기도

시초의 기도는, 소원을 말로 나타낸 것, 즉 진지한 욕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의 협조를 얻는 기법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훌륭한 가치기준을 보존하는 면에서 종교를 돕는 더 높은 기능에 도달했다.

기도와 마술은 둘 다, 사람이 **유란시아** 환경에 맞춰서 반응하는 결과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일반화된 관계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아의 적극적 행위를 가리켰으며; 항상 심령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이기도 하다. 마술은 대개, 조종하는 사람, 즉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자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체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의미했다. 마술과 기도가 독립적으로 기원됐음에도, 그것들은 후대의 발전 단계에서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술

food, shelter, rain, game, and other material goods enhanced th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y began to pray for these physical blessings. While this constituted a perversion of prayer, it encouraged the effort to realize these material objectives by social and ethical actions. Such a prostitution of prayer, while debasing the spiritual values of a people, nevertheless directly elevated their economic, social, and ethical mores.

91:1.4 (995.3) Prayer is only monologous in the most primitive type of mind. It early becomes a dialogue and rapidly expands to the level of group worship. Prayer signifies that the premagical incantations of primitive religion have evolved to that level where the human mind recognizes the reality of beneficent powers or beings who are able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to augment moral ideals, and further, that these influences are superhuman and distinct from the ego of the self-conscious human and his fellow mortals. True prayer does not, therefore, appear until the agency of religious ministry is visualized as *personal*.

91:1.5 (995.4) Prayer is little associated with animism, but such beliefs may exist alongside emerging religious sentiments. Many times, religion and animism have had entirely separate origins.

91:1.6 (995.5) With those mortals who have not been delivered from the primitive bondage of fear, there is a real danger that all prayer may lead to a morbid sense of sin, unjustified convictions of guilt, real or fancied. But in modern times it is not likely that many will spend sufficient time at prayer to lead to this harmful brooding over their unworthiness or sinfulness. The dangers attendant upon th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prayer consist in ignorance, superstition, crystallization, devitalization, materialism, and fanaticism.

2. EVOLVING PRAYER

91:2.1 (995.6) The first prayers were merely verbalized wishes, the expression of sincere desires. Prayer next became a technique of achieving spirit co-operation. And then it attained to the higher function of assisting religion in the conservation of all worth-while values.

91:2.2 (995.7) Both prayer and magic arose as a result of man's adjustive reactions to Urantian environment. But aside from this generalized relationship, they have little in common. Prayer has always indicated positive action by the praying ego; it has been always psychic and sometimes spiritual. Magic has usually signified an attempt to manipulate reality without affecting the ego of the manipulator, the practitioner of magic. Despite their independent origins, magic and prayer often

은 처방으로부터 제례식과 주문을 거쳐서, 참된 기도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높임으로써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물질적이었고, 그래서 **유란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사이비 마술 기법으로 타락했다.

기도가 신{神}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되자, 기도는 청원에 더 가까운, 호의를 추구하는 것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진지한 기도는 사람과 **조물주** 사이의 교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 자신의 헌신된 의지를 바치는 대신, 물질 소유물을 바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종교든지 제물 개념의 출현은 참된 기도의 더 높은 효력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종교가 인격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신학 및 철학 수준으로 전환된다. 종교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 범신론의 이상주의에서 보는 것 같은 비인격적 **신격** 개념이 될 때, 어떤 형태의 마술적인 교류를 위한 기초가 될 수는 있을 지라도, 참된 기도의 효력에 치명적임이 입증되는 데,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인격있고 초월적인 존재와 사람의 교류를 의미한다.

인종이 진화하던 초기에,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도, 보통 필사자의 일상 체험에서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현상과 아주 가깝다. 그러나 지적으로 기민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개인이, 인간 정신의 초의식 수준, 즉 내주하는 **사고 조물사**의 영역과 다소간 접촉을 달성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 역시 존재한다. 그 외에도, 우주의 영적 세력들이 수신{受信}하고 인식하는 데 관련되는 참된 기도의 분명한 영적 국면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인간답고 지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기도는, 진화하는 인간 정신의 종교적 감상{感想}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도는 인간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인종의 진화에서 자연 종교와 관련된 하나의 기법을 대표하며, 이것은 또한 윤리적으로 탁월한 더 높은 종교, 즉 계시 종교의 체험적 가치 가운데 일부를 구성한다.

3. 기도와 또 하나의 자아

언어 사용법을 처음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생각을 소리치려는 경향,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는 경향

have been interrelated in their later stages of development. Magic has sometimes ascended by goal elevation from formulas through rituals and incantations to the threshold of true prayer. Prayer has sometimes become so materialistic that it has degenerated into a pseudomagical technique of avoiding the expenditure of that effort which is requisite for the solution of Urantian problems.

91:23 (996.1) When man learned that prayer could not coerce the gods, then it became more of a petition, favor seeking. But the truest prayer is in reality a communion between man and his Maker.

91:24 (996.2) The appearance of the sacrifice idea in any religion unfailingly detracts from the higher efficacy of true prayer in that men seek to substitute the offerings of material possessions for the offering of their own consecrated wills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91:25 (996.3) When religion is divested of a personal God, its prayers translate to the levels of theology and philosophy. When the highest God concept of a religion is that of an impersonal Deity, such as in pantheistic idealism, although affording the basis for certain forms of mystic communion, it proves fatal to the potency of true prayer, which always stands for man's communion with a personal and superior being.

91:26 (996.4) During the earlier times of racial evolution and even at the present time, in the day-by-day experience of the average mortal, prayer is very much a phenomenon of man's intercourse with his own subconscious. But there is also a domain of prayer wherein the intellectually alert and spiritually progressing individual attains more or less contact with the superconscious levels of the human mind, the domain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n addition, there is a definite spiritual phase of true prayer which concerns its reception and recognition by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and which is entirely distinct from all human and intellectual association.

91:27 (996.5) Prayer contributes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sentiment of an evolving human mind. It is a mighty influence working to prevent isolation of personality.

91:28 (996.6) Prayer represents one technique associated with the natural religions of racial evolution which also forms a part of the experiential values of the higher religions of ethical excellence, the religions of revelation.

3. PRAYER AND THE ALTER EGO

91:31 (996.7) Children, when first learning to make use of language, are prone to think out loud, to express their thoughts in words, even if no one is

이 있다. 창조적 상상력이 생기면서, 그들은 가상(假想)의 동무들과 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짝트는 자아는, 가상의 또 하나의 자아와 교류하고자 한다. 아이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독백을 가상의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하는데, 또 하나의 이 자아가, 말로 표현된 자신의 생각과 희망에게 그 대화 속에서 반응한다. 어른의 사색은, 상당한 부분이 대화 형태로 정신 속에서 이뤄진다.

초기에 원시 형태의 기도는, 오늘날 **토다** 부족의 약간마술적인 암송(暗誦), 즉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기법은, 또 하나의 자아라는 개념이 나타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하는 대화 유형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때가 이르면, 또 하나의 자아 관념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초월적 상태로 강화되고, 기도가 종교의 매개체로서 나타난다. 여러 국면을 거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원시 유형의 기도는,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기도의 수준을 달성하기 전에 계속 진화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여러 세대의 기도하는 필사자들이 납득하다시피, 또 하나의 자아는, 유형, 주물, 및 영들을 거쳐서 다신론의 신(神)들로, 그리고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즉 기도하는 자아의 가장 높은 이상(理想)과 가장 고귀한 염원을 구현하는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가장 고상한 가치와 이상을 보존하는 일에, 종교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또 하나의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개념이 출현할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사회화시키고 교화(教化)하고 영화(靈化)시키는 실습이다.

신앙으로 드리는 단순한 기도는 인간의 체험에서 강력한 진화를 입증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원시 종교에서 허구적 상징물인, 또 하나의 자아와 함께 가졌던 옛날의 대화는, **무한자**의 영과 교류하는 수준까지, 그리고 모든 지성적 창조의 영원한 **하나님** 및 **낙원 아버지**의 실체를 진정으로 의식하는 수준까지 고양됐다.

기도하는 체험 속에서 초월적 자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윤리적인 기도는,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달성을 위해서, 사람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아를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는 인간 자아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 즉 물질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필사자가 체험하는 잠재의식 저장소로 가는 길, 그리고 통찰력과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인 **신비 통제사**와 물질 존재가 접촉하는 초의식 경계선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도는 언제나 이중적인 인간 체험: 즉 영적 기법과 서로 관련된 심리적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이런 두 가지 기능은 결코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

present to hear them. With the dawn of creative imagination they evince a tendency to converse with imaginary companions. In this way a budding ego seeks to hold communion with a fictitious alter ego. By this technique the child early learns to convert his monologue conversations into pseudo dialogues in which this alter ego makes replies to his verbal thinking and wish expression. Very much of an adult's thinking is mentally carried on in conversational form.

91:3.2 (996.8) The early and primitive form of prayer was much like the semimagical recitations of the present-day Toda tribe, prayers that were not addressed to anyone in particular. But such techniques of praying tend to evolve into the dialogue type of communication by the emergence of the idea of an alter ego. In time the alter-ego concept is exalted to a superior status of divine dignity, and prayer as an agency of religion has appeared. Through many phases and during long ages this primitive type of praying is destined to evolve before attaining the level of intelligent and truly ethical prayer.

91:3.3 (997.1) As it is conceived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praying mortals, the alter ego evolves up through ghosts, fetishes, and spirits to polytheistic gods, and eventually to the One God, a divine being embodying the highest ideals and the loftiest aspirations of the praying ego. And thus does prayer function as the most potent agency of religion in the conservation of the highest values and ideals of those who pray. From the moment of the conceiving of an alter ego to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a divine and heavenly Father, prayer is always a socializing, moralizing, and spiritualizing practice.

91:3.4 (997.2) The simple prayer of faith evidences a mighty evolution in human experience whereby the ancient conversations with the fictitious symbol of the alter ego of primitive religion have become exalted to the level of communion with the spirit of the Infinite and to that of a bona fide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of the eternal God and Paradise Father of all intelligent creation.

91:3.5 (997.3) Aside from all that is superself in the experience of praying,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ethical prayer is a splendid way to elevate one's ego and reinforce the self for better living and higher attainment. Prayer induces the human ego to look both ways for help: for material aid to the subconscious reservoir of mortal experience, for inspiration and guidance to the superconscious borders of the contact of the material with the spiritual, with the Mystery Monitor.

91:3.6 (997.4) Prayer ever has been and ever will be a twofold human experience: a psychologic procedure interassociated with a spiritual technique. And these two functions of prayer can never be fully separated.

영적 통찰력을 얻은 기도는, 밖에 계신 인격 있는 **하나님**뿐 아니라, 안에 계시고 비인격인 **신성**, 즉 내주하는 **조울사**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사람이 기도할 때,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기법은, 원시 정신이 늘 그랬듯이, 가까이 있는 또 하나의 자아 개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런 또 하나의 자아 개념이 단순한 허구로부터 진화하여, **조울사**라는 실제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진리에 이르게 됐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내주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 즉 **만유의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이 본질인 실제적이고 참되며 신성한 또 하나의 자아와,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

4. 윤리적인 기도

간구하는 자가, 동료들보다 유리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기도도 윤리적일 수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는, 이타적이고 거룩한 사랑에 입각한 윤리적 종교와 모순된다. 그런 비윤리적인 모든 기도는 가짜 마술의 원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문명 및 계몽된 종교에 적합하지 않다. 이기적인 기도는 애정 어린 응보 위에 세워진, 모든 윤리의 참뜻에 위배된다.

기도는 행동을 대체시킬 만큼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윤리적인 기도는 행동하도록 자극하며, 초월적 자아-달성이라는 이상적 목적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도록 안내한다.

너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공정 하라; **하나님**께서 편애하심으로, 다른 자녀들,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심지어 적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자연 종교, 즉 진화 종교의 기도는, 후대의 계시된 종교의 기도와는 달리, 처음에는 윤리적이지 않다. 모든 기도는, 개별로 하든지 집단으로 하든지,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중심으로 또는 타인중심으로 드릴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자신은 물론 동료를 위해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 혼의 그런 태도는 참된 경배 수준에 도달한다. 자기중심의 기도는 고백과 청원을 포함하며, 물질적 은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용서를 다루고 자아-통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할 때, 기도는 얼마큼 더 윤리적이다.

이기적이 아닌 유형의 기도는 힘을 주고 위안을 주지만, 사람이 법칙과 질서 속에 운행되는 물리적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진보하는 과학의 발견이 보여줌에 따라서, 물질적 기도는 실망과 환멸감을 주게 돼있다. 한 개인이나 종족이 어린 시기에는,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드리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모

91:3.7 (997.5) Enlightened prayer must recognize not only an external and personal God but also an internal and impersonal Divinity, the indwelling Adjuster. It is altogether fitting that man, when he prays, should strive to grasp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but the more effective technique for most practical purposes will be to revert to the concept of a near-by alter ego, just as the primitive mind was wont to do, and then to recognize that the idea of this alter ego has evolved from a mere fiction to the truth of God's indwelling mortal man in the factual presence of the Adjuster so that man can talk face to face, as it were, with a real and genuine and divine alter ego that indwells him and is the very presence and essence of the living God, the Universal Father.

4. ETHICAL PRAYING

91:4.1 (997.6) No prayer can be ethical when the petitioner seeks for selfish advantage over his fellows. Selfish and materialistic praying is incompatible with the ethical religions which are predicated on unselfish and divine love. All such unethical praying reverts to the primitive levels of pseudo magic and is unworthy of advancing civilizations and enlightened religions. Selfish praying transgresses the spirit of all ethics founded on loving justice.

91:4.2 (997.7) Prayer must never be so prostituted as to become a substitute for action. All ethical prayer is a stimulus to action and a guide to the progressive striving for idealistic goals of superself-attainment.

91:4.3 (998.1) In all your praying be fair; do not expect God to show partiality, to love you more than his other children, your friends, neighbors, even enemies. But the prayer of the natural or evolved religions is not at first ethical, as it is in the later revealed religions. All praying, whether individual or communal, may be either egoistic or altruistic. That is, the prayer may be centered upon the self or upon others. When the prayer seeks nothing for the one who prays nor anything for his fellows, then such attitudes of the soul tend to the levels of true worship. Egoistic prayers involve confessions and petitions and often consist in requests for material favors. Prayer is somewhat more ethical when it deals with forgiveness and seeks wisdom for enhanced self-control.

91:4.4 (998.2) While the nonselfish type of prayer is strengthening and comforting, materialistic praying is destined to bring disappointment and disillusionment as advancing scientific discoveries demonstrate that man lives in a physical universe of law and order. The childhood of an individual or a race is characterized by primitive, selfish, and materialistic praying. And, to a certain extent, all

든 청원은,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도록, 어김없이 인도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 신앙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는, 비록 그런 청원이 영적 보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더라도, 삶의 기쁨을 증대시키도록 반드시 기여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된 인간은, 원시적이거나 미숙한 정신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려고 시도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확실하게 기대하는 그 사람 속에, 대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자주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도는, 진화하는 종족들의 남녀 안에서, 상당한 정신적 평안, 쾌활함, 침착, 용기, 자제심, 및 긍정성의 근원이었다.

5. 기도의 사회적 영향

조상 숭배에서, 기도는 조상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길로 이끈다. 그러나 **신격**을 경배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기도는, 모든 다른 그런 풍습을 초월하는데, 신성한 이상을 계발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또 하나의 자아 개념이 지극히 높아지고 신성하게 되면서, 사람의 이상도 그에 따라 단순한 인간 수준에서 숭고하고 신성한 수준으로 올라가며, 그런 모든 기도의 결과로, 인간의 성품이 증진되고 인간의 인격이 심원한 통합을 이룩한다.

그러나 기도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 집단 기도 또는 회중 기도가 매우 효과적이데, 그 속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심오한 사회화가 이뤄진다. 한 집단이 도덕 증진과 영적 향상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할 때, 그런 헌신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며;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더 낮게 변화된다. 심지어 한 도시 전체 또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헌신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고백, 회개, 및 기도는, 개혁하려는 위대한 수고와 과감한 성취를 향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개인, 도시, 국가, 그리고 전체 종족을 이끌어 왔다.

너희가 어떤 친구를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은, 너희 삶에서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사회적 반응은 주로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1.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그 사람이 알아야 한다.

2.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 긴밀한 사회적 접촉에 참여해야 한다.

such petitions are efficacious in that they unvaryingly lead to those efforts and exertions which are contributory to achieving the answers to such prayers. The real prayer of faith always contributes to the augmentation of the technique of living, even if such petitions are not worthy of spiritual recognition. But the spiritually advanced person should exercise great caution in attempting to discourage the primitive or immature mind regarding such prayers.

91:4.5 (998.3) Remember, even if prayer does not change God, it very often effects great and lasting changes in the one who prays in faith and confident expectation. Prayer has been the ancestor of much peace of mind, cheerfulness, calmness, courage, self-mastery, and fair-mindedness in the men and women of the evolving races.

5. SOCIAL REPERCUSSIONS OF PRAYER

91:5.1 (998.4) In ancestor worship, prayer leads to the cultivation of ancestral ideals. But prayer, as a feature of Deity worship, transcends all other such practices since it leads to the cultivation of divine ideals. As the concept of the alter ego of prayer becomes supreme and divine, so are man's ideals accordingly elevated from mere human toward supernal and divine levels, and the result of all such praying is the enhancement of human character and the profound unification of human personality.

91:5.2 (998.5) But prayer need not always be individual. Group or congregational praying is very effective in that it is highly socializing in its repercussions. When a group engages in community prayer for moral enhancement and spiritual uplift, such devotions are reactive upon the individuals composing the group; they are all made better because of participation. Even a whole city or an entire nation can be helped by such prayer devotions. Confession, repentance, and prayer have led individuals, cities, nations, and whole races to mighty efforts of reform and courageous deeds of valorous achievement.

91:5.3 (998.6) If you truly desire to overcome the habit of criticizing some friend, the quickest and surest way of achieving such a change of attitude is to establish the habit of praying for that person every day of your life. But the social repercussions of such prayers are dependent largely on two conditions:

91:5.4 (998.7) 1. The person who is prayed for should know that he is being prayed for.

91:5.5 (999.1) 2. The person who prays should come into intimate social contact with the person for whom he is praying.

기도는 조만간에 모든 종교를 제도화시키는 기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때가 되면 수많은 보조 매개체와 결합되는데, 사제, 거룩한 책, 경배 제례식, 그리고 예식절차 등과 같이, 더러는 유익하지만 더러는 뚜렷이 해롭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계몽된 정신은, 자신의 연약한 영적 통찰력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상징을 갈망하는, 지능을 적게 타고난 자들에게 참으면서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상징물 없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형식과 제례식 없이는, **신격**을 숭배하기 어렵고,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존중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상징물의 은혜로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배 드리는 동안, 대부분의 필사자는, 예배하는 대상_목표에 해당하는 어떤 상징을 상상한다.

6. 기도의 범위

기도는, 어떤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적 세력 및 물질 감독관들의 뜻 및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청원하는 기도의 범위에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한계는, 기도하는 자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법은 아니지만, 넘치는 건강을 향유하기에, 그리고 수많은 정신, 감정, 및 신경성 질병의 치유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심지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실제 질환의 경우에도, 기도는 여러 번 다른 치료 절차의 효험에 크게 보탬이 됐다. 기도는, 쉽게 흥분하고 불평하는 수많은 환자를 변화시켜서 모범적 환자가 되게 하고, 고통 받는 모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감화 받도록 만든다.

기도의 효능에 관한 과학적 의구심, 그리고 신성한 근원들로부터 도움과 인도를 받으려 하는 늘 있는 충동,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으로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개인의 행복, 개인적 자아_통제, 사회적 조화, 도덕적 진보, 및 영적 달성을 증진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기도는, 심지어 순전히 인간적인 풍습, 즉 사람의 또 다른 자아와의 대화라 하더라도, 인간 정신의 무의식 영역에 저장되고 보존된, 인간 본성에 축적된 능력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이다. 기도는, 그 종교적 함축성과 영적 의미 이외에도, 건전한 심리적 습관이다. 충분히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도움의 근원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체험에서 사실이다.

91:5.6 (999.2) Prayer is the technique whereby, sooner or later, every religion becomes institutionalized. And in time prayer becomes associated with numerous secondary agencies, some helpful, others decidedly deleterious, such as priests, holy books, worship rituals, and ceremonials.

91:5.7 (999.3) But the minds of greater spiritual illumination should be patient with, and tolerant of, those less endowed intellects that crave symbolism for the mobilization of their feeble spiritual insight. The strong must not look with disdain upon the weak. Those who are God-conscious without symbolism must not deny the grace-ministry of the symbol to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worship Deity and to revere truth, beauty, and goodness without form and ritual. In prayerful worship, most mortals envision some symbol of the object-goal of their devotions.

6. THE PROVINCE OF PRAYER

91:6.1 (999.4) Prayer, unless in liaison with the will and actions of the personal spiritual forces and material supervisors of a realm, can have no direct effect upon one's physical environment. While there is a very definite limit to the province of the petitions of prayer, such limits do not equally apply to the *faith* of those who pray.

91:6.2 (999.5) Prayer is not a technique for curing real and organic diseases, but it has contributed enormously to the enjoyment of abundant health and to the cure of numerous mental, emotional, and nervous ailments. And even in actual bacterial disease, prayer has many times added to the efficacy of other remedial procedures. Prayer has turned many an irritable and complaining invalid into a paragon of patience and made him an inspiration to all other human sufferers.

91:6.3 (999.6)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o reconcile the scientific doubtings regarding the efficacy of prayer with the ever-present urge to seek help and guidance from divine sources, never forget that the sincere prayer of faith is a mighty force for the promotion of personal happiness, individual self-control, social harmony, mor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91:6.4 (999.7) Prayer, even as a purely human practice, a dialogue with one's alter ego, constitutes a technique of the most efficient approach to the realization of those reserve powers of human nature which are stored and conserved in the unconscious realms of the human mind. Prayer is a sound psychologic practice, aside from its religious implications and its spiritual significance. It is a fact of human experience that most persons, if sufficiently hard pressed, will pray in some way to some source of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만큼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너희가 당면하는 문제를 단호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탱시킬 수 있는 영적 힘과 지혜를, 서슴지 말고 그분께 요청해라.

기도는 종교적 문명의 진보와 보존에서 필수 요소였으며, 기도하는 자가, 과학적인 사실, 철학적인 지혜, 지적인 진지함, 그리고 영적 신앙의 견지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는 공동체를 더욱 향상시키고 영화{靈化}를 이룩하도록 여전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진지하게, 이타적으로, 공정함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몸소 영적 체험을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의 효력은, 어떤 면에서도, 그런 경배자의 지혜, 이해력, 철학적 통찰력, 사회적 수준, 문화적 상태, 또는 필사자의 기타 재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심령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수되는 것들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며 체험적이다. 필사자가 무슨 다른 업적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조물주**와 대화할 수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의 실체와, 내주하는 **사조**와 접촉하는, 바로 그 영역의 입구에 아주 효과적으로 즉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7. 신비주의, 황홀경, 영감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의식{意識}을 배양하는 기법으로서 아주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 풍습이 사회에서 고립되도록 야기하고 결국 종교적 광신에 이른다면,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도한 신비주의자가 신성한 통찰력이라고 평가한 것이, 자신의 깊은 정신에서 솟아난 경우가 대체로 너무 흔하다. 필사 정신이, 내주하는 **조물주**와 접촉하는 것은, 묵상에 몰입함으로써 종종 혜택을 입지만, 동료 피조물을 이타적으로 보살피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촉진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지난 시절에 나타났던 위대한 종교 교사와 선지자들은 극단적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남녀였고, 동료 필사자들을 이타적으로 보살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께서 종종 사도들만 따로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시 동안 묵상과 기도에 잠기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이 대중을 접촉하고 봉사하도록 했다. 사람의 혼은 영적 양식뿐 아니라 영적 실행도 필요로 한다.

종교적 황홀경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생

help.

91:6.5 (999.8) Do not be so slothful as to ask God to solve your difficulties, but never hesitate to ask him for wisdom and spiritual strength to guide and sustain you while you yourself resolutely and courageously attack the problems at hand.

91:6.6 (999.9) Prayer has been an indispensable factor in the progress and preservation of religious civilization, and it still has mighty contributions to make to the further enhancement and spiritualization of society if those who pray will only do so in the light of scientific facts, philosophic wisdom, intellectual sincerity, and spiritual faith. Pray as Jesus taught his disciples — honestly, unselfishly, with fairness, and without doubting.

91:6.7 (1000.1) But the efficacy of prayer in the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of the one who prays is in no way dependent on such a worshiper's intellectual understanding, philosophic acumen, social level, cultural status, or other mortal acquirements. The psychic and spiritual concomitants of the prayer of faith are immediate, personal, and experiential. There is no other technique whereby every man, regardless of all other mortal accomplishments, can so effectively and immediately approach the threshold of that realm wherein he can communicate with his Maker, where the creature contacts with the reality of the Creator,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7.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91:7.1 (1000.2) Mysticism, as the technique of the cultiv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God, is altogether praiseworthy, but when such practices lead to social isolation and culminate in religious fanaticism, they are all but reprehensible. Altogether too frequently that which the overwrought mystic evaluates as divine inspiration is the uprisings of his own deep mind. The contact of the mortal mind with its indwelling Adjuster, while often favored by devoted meditation, is more frequently facilitated by wholehearted and loving service in unselfish ministry to one's fellow creatures.

91:7.2 (1000.3) The great religious teachers and the prophets of past ages were not extreme mystics. They were God-knowing men and women who best served their God by unselfish ministry to their fellow mortals. Jesus often took his apostles away by themselves for short periods to engage in meditation and prayer, but for the most part he kept them in service-contact with the multitudes. The soul of man requires spiritual exercise as well as spiritual nourishment.

91:7.3 (1000.4) Religious ecstasy is permissible when

기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런 체험은 깊은 영적 성품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순전히 감정적인 영향에서 생긴 부산물일 경우가 훨씬 많다. 종교적인 사람은, 명확한 심리적 예감과 강렬하게 감동한 체험 전부가, 일종의 신성한 계시 또는 영적 교통이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종교적 황홀경은 대개 외적{外的}으로 심오하게 평온하며, 거의 완전한 감정 통제와 연결돼 있다. 그러나 참된 선지적{先知的} 환상은 심리 기능을 초월하는 예감이다. 그런 은총은 허위적 환각이 아니며, 또한 신들린 것 같은 황홀경도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잠재의식에서 떠오르는 것이나 초의식의 자극에 민감할 때, 아마도 그 정신은 소위 영감{靈感}에 반응해서 작동할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경우든지, 의식{意識}의 내용물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제어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광신{狂信}과 자유분방한 종교적 황홀경은, 영감{靈感}을 받았다는 인증서,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증서가 아니다.

신비주의, 황홀경, 및 영감 같은 이런 모든 생소한 종교 체험이 진짜인지를 재는 실용적 진단은,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1. 더 낮고 더 완전한 육체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가.
2. 그의 정신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작용하는가.
3. 자신의 종교 체험을 더 완전하게 더 기쁘게 사회화하는가.
4. 일상적 필사자 실존에서 평범한 임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매일의 생활을 더 완전하게 영화{靈化}시키는가.
5.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그가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게 하는가.
6.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및 영적 가치기준을 유지하게 하는가.
7. 그의 영적 통찰력을--곧 하나님 의식을--증대시키는가.

그러나 기도는 이런 특별한 종교 체험과 아무런 진정한 관계가 없다. 기도가 과도하게 심미적{審美的} 상태가 될 때, 기도가 거의 순전히 낙원의 신성{神性}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숙고로 구성될 때, 기도는 사회화시키는 그 영향력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기도에 열중하는 자를 신비주의와 고립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혼자만의 기도와 관련된 어떤 위험이 있는데, 집단의 기도, 즉 공동체의 헌신이 이를 교정하고 예방한다.

resulting from sane antecedents, but such experiences are more often the outgrowth of purely emotional influences than a manifestation of deep spiritual character. Religious persons must not regard every vivid psychologic presentiment and every intense emotional experience as a divine revelation or a spiritual communication. Genuine spiritual ecstasy is usually associated with great outward calmness and almost perfect emotional control. But true prophetic vision is a superpsychologic presentiment. Such visitations are not pseudo hallucinations, neither are they trancelike ecstasies.

91:7.4 (1000.5) The human mind may perform in response to so-called inspiration when it is sensitive either to the uprisings of the subconscious or to the stimulus of the superconscious. In either case it appears to the individual that such augmentations of the content of consciousness are more or less foreign. Unrestrained mystical enthusiasm and rampant religious ecstasy are not the credentials of inspiration, supposedly divine credentials.

91:7.5 (1000.6) The practical test of all these strange religious experiences of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is to observe whether these phenomena cause an individual:

- 91:7.6 (1000.7) 1. To enjoy better and more complete physical health.
- 91:7.7 (1000.8) 2.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and practically in his mental life.
- 91:7.8 (1000.9) 3. More fully and joyfully to socialize his religious experience.
- 91:7.9 (1000.10) 4. More completely to spiritualize his day-by-day living while faithfully discharging the commonplace duties of routine mortal existence.
- 91:7.10 (1001.1) 5. To enhance his love for, and appreciat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 91:7.11 (1001.2) 6. To conserve currently recognized social, moral, ethical, and spiritual values.
- 91:7.12 (1001.3) 7. To increase his spiritual insight — God-consciousness.

91:7.13 (1001.4) But prayer has no real association with these exceptional religious experiences. When prayer becomes overmuch aesthetic, when it consists almost exclusively in beautiful and blissful contemplation of paradisiacal divinity, it loses much of its socializing influence and tends toward mysticism and the isolation of its devotees. There is a certain danger associated with overmuch private praying which is corrected and prevented by group praying, community devotions.

8. 개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8. PRAYING AS A PERSONAL EXPERIENCE

기도에는 참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원시인은 이미 스스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사람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닥칠 때 늘 기도했다: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충동을 체험했으며;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기도는 마술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 마술은 상황에 맞게 **신격**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 기도에는 인간성을 **신격**의 뜻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마술은 둘 다 아니다.

기도는 확립된 관습이 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더러는, 자신이 정기적인 간청을 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므로 기도한다.

어떤 개인들에게 기도는 감사에 대한 조용한 표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찬미를 집단으로 표현한 것, 즉 사회적 헌신의 표현이며; 때때로 기도는 다른 종교를 흉내 낸 것이기도 하지만, 참된 기도란, 피조물의 영적 본성이, 어디든지 계시는 **창조주**의 영광 진지하게 신뢰하면서 나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함을 무의식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신학적으로 공식화된 무의미한 낭송 {朗誦}이 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혼이 환희에 넘쳐서 드리는 찬양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속박 당한 필사자가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일 수 있다. 기도는 때로 영적 목마름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며, 경건한 문장을 떠들썩하게 외치는 경우도 있다. 기도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 또는 용서를 바라는 겸손한 탄원일지도 모른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유치한 요청이 될 수 있고, 도덕적 성장과 영적 능력을 바라는 성숙된 간청이 될 수도 있다. 간구 {懇求}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행하고자 전심으로 열망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요청이 될 수 있고, 이타적인 형제관계를 실현하려는, 참되고 숭고한 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도는, 복수를 위한 성난 고함 소리, 또는 자신의 적을 위한 자비로운 중재가 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법이 될 수도 있다. 기도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심판주** 앞에서 도망쳤던 죄인이 하는 비굴한 해명이 될 수 있고, 하늘에 계시고 살아 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해방된 아들이 기쁨에 넘쳐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다.

현대인은, **하나님**과 여러 일에 관해서 순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황해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규칙적인 기도를 거부해 왔고, 오직 특별한 고난을 받을 때에만—즉 긴

91:8.1 (1001.5) There is a truly spontaneous aspect to prayer, for primitive man found himself praying long before he had any clear concept of a God. Early man was wont to pray in two diverse situations: When in dire need, he experienced the impulse to reach out for help; and when jubilant, he indulged the impulsive expression of joy.

91:8.2 (1001.6) Prayer is not an evolution of magic; they each arose independently. Magic was an attempt to adjust Deity to conditions; prayer is the effort to adjust the personality to the will of Deity. True prayer is both moral and religious; magic is neither.

91:8.3 (1001.7) Prayer may become an established custom; many pray because others do. Still others pray because they fear something direful may happen if they do not offer their regular supplications.

91:8.4 (1001.8) To some individuals prayer is the calm expression of gratitude; to others, a group expression of praise, social devotions; sometimes it is the imitation of another's religion, while in true praying it is the sincere and trusting communication of the spiritual nature of the creature with the anywhere presence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91:8.5 (1001.9) Prayer may be a spontaneous expression of God-consciousness or a meaningless recitation of theologic formulas. It may be the ecstatic praise of a God-knowing soul or the slavish obeisance of a fear-ridden mortal. It is sometimes the pathetic expression of spiritual craving and sometimes the blatant shouting of pious phrases. Prayer may be joyous praise or a humble plea for forgiveness.

91:8.6 (1001.10) Prayer may be the childlike plea for the impossible or the mature entreaty for moral growth and spiritual power. A petition may be for daily bread or may embody a wholehearted yearning to find God and to do his will. It may be a wholly selfish request or a true and magnificent gesture toward the realization of unselfish brotherhood.

91:8.7 (1001.11) Prayer may be an angry cry for vengeance or a merciful intercession for one's enemies. It may be the expression of a hope of changing God or the powerful technique of changing one's self. It may be the cringing plea of a lost sinner before a supposedly stern Judge or the joyful expression of a liberated son of the living and merciful heavenly Father.

91:8.8 (1001.12) Modern man is perplexed by the thought of talking things over with God in a purely personal way. Many have abandoned regular praying; they only pray when under unusual

급한 경우에만-- 기도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오직 영적 어린아이만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실체에 도달한다. 기류(氣流)가 위로 솟구칠 지라도, 새가 날개를 펴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 없다. 기도는 사람을 향상시키는데, 우주의 상승하는 영적 기류를 이용함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영적 성장에 보탬이 되고, 태도를 변경시키며, 신성과의 교류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을 낳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식(意識)이 저절로 분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증대된 계시, 아름다움에 대한 증진된 감상, 그리고 선함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제공하심으로써,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주관적인 행동이지만, 인간 체험의 영적 수준에서 강력한 객관적 실체들과 접촉하며; 초인적 가치를 얻으려고 인간이 의미심장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유력한 자극제다.

말은 기도와 상관이 없으며; 영적 간청이 우연히 흐를 수도 있는 지적(知的) 경로에 불과하다. 기도에서 말의 가치는, 개인의 헌신에서 순전히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 헌신에서 공동체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혼의 태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갈등에서 회피하는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직면하여 자라나게 하는 자극제다. 물질이 아니라, 오직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9.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너희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널리 적용되는 간구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너희는 우주 실체의 문제에 진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맞섬으로써 능력 있는 기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너희는 시공우주의 끈기를 소유해야 한다.

2. 너희는 인간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적 수용력을 정직하게 모두 쏟아 부었어야 한다. 너희는 부지런했어야 한다.

3. 너희는 정신의 모든 소원과 혼의 모든 갈망을 영적 성장이라는 변형시키는 품 속에 굴복시켜야 한다. 너희는 의미의 증진과 가치기준의 향상을 체험했어야 한다.

4. 너희는 신성한 뜻을 전심으로 선택해야 한

pressure — in emergencies. Man should be unafraid to talk to God, but only a spiritual child would undertake to persuade, or presume to change, God.

91:8.9 (1002.1) But real praying does attain reality. Even when the air currents are ascending, no bird can soar except by outstretched wings. Prayer elevates man because it is a technique of progressing by the utilization of the ascending spiritual currents of the universe.

91:8.10 (1002.2) Genuine prayer adds to spiritual growth, modifies attitudes, and yields that satisfaction which comes from communion with divinity. It is a spontaneous outburst of God-consciousness.

91:8.11 (1002.3) God answers man's prayer by giving him an increased revelation of truth, an enhanced appreciation of beauty, and an augmented concept of goodness. Prayer is a subjective gesture, but it contacts with mighty objective realities on the spiritual levels of human experience; it is a meaningful reach by the human for superhuman values. It is the most potent spiritual-growth stimulus.

91:8.12 (1002.4) Words are irrelevant to prayer; they are merely the intellectual channel in which the river of spiritual supplication may chance to flow. The word value of a prayer is purely autosuggestive in private devotions and sociosuggestive in group devotions. God answers the soul's attitude, not the words.

91:8.13 (1002.5) Prayer is not a technique of escape from conflict but rather a stimulus to growth in the very face of conflict. Pray only for values, not things; for growth, not for gratification.

9. CONDITIONS OF EFFECTIVE PRAYER

91:9.1 (1002.6) If you would engage in effective praying, you should bear in mind the laws of prevailing petitions:

91:9.2 (1002.7) 1. You must qualify as a potent prayer by sincerely and courageously facing the problems of universe reality. You must possess cosmic stamina.

91:9.3 (1002.8) 2. You must have honestly exhausted the human capacity for human adjustment. You must have been industrious.

91:9.4 (1002.9) 3. You must surrender every wish of mind and every craving of soul to the transforming embrace of spiritual growth. You must have experienced an enhancement of meanings and an elevation of values.

91:9.5 (1002.10) 4. You must make a wholehearted

다. 너희는 쓸모없는 우유부단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5. 너희는 **아버지**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기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실제로 행하도록 무조건적 헌신과 역동적 봉헌을 실행해 와야 한다.

6. 너희의 기도는 **낙원**으로 상승하면서--곧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면서-- 부딪치는 특이한 인간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오로지 신성한 지혜를 얻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신앙을--곧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choice of the divine will. You must obliterate the dead center of indecision.

91:9.6 (1002.11) 5. You not only recognize the Father's will and choose to do it, but you have effected an unqualified consecration, and a dynamic dedication, to the actual doing of the Father's will.

91:9.7 (1002.12) 6. Your prayer will be directed exclusively for divine wisdom to solve the specific human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aradise ascension — the attainment of divine perfection.

91:9.8 (1002.13) 7. And you must have faith — living faith.

91:9.9 (1002.14) [Presented by the Chief of the Urantia Midwayers.]

제92편. 후대의 종교 진화

⇨ 091

유란시아 책

09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2편
후대의 종교 진화

섹션

소개

1. 종교의 진화 본성
2. 종교와 사회관행
3. 진화 종교의 본성
4. 계시라는 선물
5. 위대한 종교 지도자
6. 혼합 종교
7. 종교의 추후 진화

PAPER 92
THE LATER EVOLUTION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volutionary Nature of Religion
2. Religion and the Mores
3. The Nature of Evolutionary Religion
4. The Gift of Revelation
5. The Great Religious Leaders
6. The Composite Religions
7. The Further Evolution of Religion

소개

유란시아에 어떤 체계적인 계시든지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은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로서 자연적으로 기원된 일종의 종교를 소유했다. 그러나 **자연발생**으로 기원된 이 종교 자체는, 사람이 가진, 동물을 초월하는 재능의 산물이다. 진화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체험적 경력 전반에 걸쳐서, 미개인, 야만인, 및 문명인 속에서 작용하고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작용의 역할을 통해서 서서히 발생했다:

1. **경배 보조체**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초동물적 잠재력이 동물 의식(意識) 속에 출현함. 이것은 **신격**을 찾는 근본적인 인간 본능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2. **지혜 보조체** --상류의 표현 경로에서, 그리고 계속 확장하는 **신격** 실체에 대한 개념을 향해서, 경건한 정신 속에 존송을 지도하는 성향이 있는 나타남.

3. **거룩한 영** --이것은 정신을 초월해서 초기

INTRODUCTION

92:0.1 (1003.1) MAN possessed a religion of natural origin as a part of his evolutionary experience long before any systematic revelations were made on Urantia. But this religion of *natural* origin was, in itself, the product of man's superanimal endowments. Evolutionary religion arose slowly throughout the millenniums of mankind's experiential career through the ministry of the following influences operating within, and impinging upon, savage, barbarian, and civilized man:

92:0.2 (1003.2) 1. *The adjutant of worship* — the appearance in animal consciousness of superanimal potentials for reality perception. This might be termed the primordial human instinct for Deity.

92:0.3 (1003.3) 2. *The adjutant of wisdom* — the manifestation in a worshipful mind of the tendency to direct its adoration in higher channels of expression and toward ever-expanding concepts of Deity reality.

92:0.4 (1003.4) 3. *The Holy Spirit* — this is the initial

에 증여되는 것이며, 진실한 모든 인간의 인격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경배를 갈망하고 지혜를 구하는 정신에게 베푸는 이 사역은, 신학 개념으로서, 그리고 또한 인격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기본원리를 자각(自覺)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한다.

이 세 가지 신성한 보살핌이 협조해서 작용하는 것은, 진화 종교의 성장을 개시하고 속행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사고 조율사**, 스라빔, 및 **진리의 영**이 이 영향을 나중에 확대하는데, 이 모든 것이 종교의 발전 속도를 가속시킨다. 이 매개체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작용해 왔고, 이 행성이 인간거주 구체로 남아있는 한, 존속할 것이다. 이런 신성한 매개체들의 잠재력 대부분은, 아직까지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 대부분은, 모론시아 가치와 영 진리의 숭고한 정상을 향해서 필사자의 종교가 한 수준씩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올 시대에 밝혀질 것이다.

1. 종교의 진화 본성

초기의 두려움과 유명들로부터 시작해서, 영들을 처음에는 강요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설득시키려고 애쓴 것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여러 발전 단계를 통해서 종교가 진화한 것을 추적해왔다. 부족의 주물은 토렘과 부족 신(神)들로 발전했으며; 마술적 방식은 현대의 기도가 됐다. 처음에는 하나의 제물이었던 할례는 위생 절차가 됐다.

종족들이 미개했던 초기단계 내내, 종교는, 자연 숭배로부터 유명 숭배를 거쳐서 주물숭배 체계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 인간 종족은 문명의 태동과 함께 더 신비하고 상징적인 믿음을 신봉했지만, 이제는 인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참다운 종교를 감지할 만큼, 심지어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것까지도 감지할 만큼 무르익고 있다.

종교는, 영적 믿음과 환경에 대해서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생겨났으며; 한 종족 안에서 좀처럼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는, 어느 시대든지, 신비스런 것에 대한 사회의 조절이다. 종교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제례, 상징, 숭배자 집단, 경전, 제단, 성소, 신전 등을 포함한다. 성수(聖水), 유물, 주물, 주문, 제의, 종, 북, 및 제사장체제 등은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있다. 그리고 순전히 진화된 종교를, 마술이나 요술로부터 온전히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신비와 능력이 언제나 종교적 느낌과 두려움을 자극해 왔고, 한편 감정은 이 두 가지의 발전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요소로서 언제나 작용해 왔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근본적인 종교적 자극제였다. 진화 종교에서, 두려움이 신(神)들을 형성했고, 원

supermind bestowal, and it unfailingly appears in all bona fide human personalities. This ministry to a worship-craving and wisdom-desiring mind creates the capacity to self-realize the postulate of human survival, both in theologic concept and as an actual and factual personality experience.

92:0.5 (1003.5) The co-ordinate functioning of these three divine ministrations is quite sufficient to initiate and prosecute the growth of evolutionary religion. These influences are later augmented by Thought Adjusters, seraphim, and the Spirit of Truth, all of which accelerate the rate of religious development. These agencies have long functioned on Urantia, and they will continue here as long as this planet remains an inhabited sphere. Much of the potential of these divine agencies has never yet had opportunity for expression; much will be revealed in the ages to come as mortal religion ascends, level by level, toward the supernal heights of morontia value and spirit truth.

1. THE EVOLUTIONARY NATURE OF RELIGION

92:1.1 (1003.6) The evolution of religion has been traced from early fear and ghosts down through many successive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those efforts first to coerce and then to cajole the spirits. Tribal fetishes grew into totems and tribal gods; magic formulas became modern prayers. Circumcision, at first a sacrifice, became a hygienic procedure.

92:1.2 (1003.7) Religion progressed from nature worship up through ghost worship to fetishism throughout the savage childhood of the races. With the dawn of civilization the human race espoused the more mystic and symbolic beliefs, while now, with approaching maturity, mankind is ripening for the appreciation of real religion, even a beginning of the revelation of truth itself.

92:1.3 (1004.1) Religion arises as a biologic reaction of mind to spiritual beliefs and the environment; it is the last thing to perish or change in a race. Religion is society's adjustment, in any age, to that which is mysterious. As a social institution it embraces rites, symbols, cults, scriptures, altars, shrines, and temples. Holy water, relics, fetishes, charms, vestments, bells, drums, and priesthoods are common to all religions. And it is impossible entirely to divorce purely evolved religion from either magic or sorcery.

92:1.4 (1004.2) Mystery and power have always stimulated religious feelings and fears, while emotion has ever functioned as a powerful conditioning factor in their development. Fear has always been the basic religious stimulus. Fear

시 신자의 종교 제례식을 유발시켰다. 문명이 발전되자, 두려움은 경애심, 찬양, 존경심, 및 연민의 정으로 인해 변경됐고, 그 다음에는 자책과 회개가 이를 더욱 조절했다.

아시아의 어떤 민족은, “하나님은 심히 두려운 분이시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순전히 진화 종교의 산물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종교적 삶을 제시했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했다.

2. 종교와 사회관행

종교는,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서 가장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마지못해 적응한다. 결국, 진화 종교는 변화하는 사회관행을 반영하게 되는데, 역으로 사회관행은 제시된 종교에 영향을 받아 왔을 수도 있다. 서서히, 분명하게, 그러나 억지로, 종교는(곧 경배는) 지혜의 발자국--즉 체험적 이성인 유도하고, 신성한 계시가 조명하는 지식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종교는 사회관행에 집착하며; *이미 있던 것은* 고전적이고 신성하게 여겨진다. 다른 아닌 이런 이유로, 돌로 만든 도구가 청동기와 철기 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됐다. 이런 말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로 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 것이니,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면, 너희는 이미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도, **힌두교도**는 원시적인 발화도구(發火道具)를 이용해서 제단 불을 붙인다. 진화 종교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 성례에서, 새롭고 가공된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고, 가장 원시적인 음식물만 허용됐는데: “불로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쓴 나물들과 함께 제공됐다.” 모든 유형의 사회관행과 심지어 법정의 절차도 옛 형태를 고수한다.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많은 것이, 다른 여러 종교 경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현대인이 놀랄 때, 조상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기를, 지나가는 세대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한다. 한 세대가 음란하게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이, 그 전 세대에는 사회관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공인된 종교 제례식인 경우도 있었다. 상당히 많은 종교적 논쟁은, 오래 전부터 내려왔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풍습을 새로 제시된 논리와 절충하고, 진부한 옛 관습을 신조(信條)로 영속시키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럴듯한 이론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시도 때문에 야기돼 왔다.

그러나 종교의 성장을 너무 갑작스럽게 가속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이다. 한 종족이나 민족은, 진보된 어떤 종교로부터든지, 적응

fashions the gods of evolutionary religion and motivates the religious ritual of the primitive believers. As civilization advances, fear becomes modified by reverence, admiration, respect, and sympathy and is then further conditioned by remorse and repentance.

92:1.5 (1004.3) One Asiatic people taught that “God is a great fear”; that is the outgrowth of purely evolutionary religion. Jesus, the revelation of the highest type of religious living, proclaimed that “God is love.”

2. RELIGION AND THE MORES

92:2.1 (1004.4) Religion is the most rigid and unyielding of all human institutions, but it does tardily adjust to changing society. Eventually, evolutionary religion does reflect the changing mores, which, in turn, may have been affected by revealed religion. Slowly, surely, but grudgingly, does religion (worship) follow in the wake of wisdom — knowledge directed by experiential reason and illuminated by divine revelation.

92:2.2 (1004.5) Religion clings to the mores; that which was is ancient and supposedly sacred. For this reason and no other, stone implements persisted long into the age of bronze and iron. This statement is of record: “And if you will make me an altar of stone, you shall not build it of hewn stone, for, if you use your tools in making it, you have polluted it.” Even today, the Hindus kindle their altar fires by using a primitive fire drill. In the course of evolutionary religion, novelty has always been regarded as sacrilege. The sacrament must consist, not of new and manufactured food, but of the most primitive of viands: “The flesh roasted with fire and unleavened bread served with bitter herbs.” All types of social usage and even legal procedures cling to the old forms.

92:2.3 (1004.6) When modern man wonders at the presentation of so much in the scriptures of different religions that may be regarded as obscene, he should pause to consider that passing generations have feared to eliminate what their ancestors deemed to be holy and sacred. A great deal that one generation might look upon as obscene, preceding generations have considered a part of their accepted mores, even as approved religious rituals. A considerable amount of religious controversy has been occasioned by the never-ending attempts to reconcile olden but reprehensible practices with newly advanced reason, to find plausible theories in justification of creedal perpetuation of ancient and outworn customs.

92:2.4 (1004.7) But it is only foolish to attempt the too sudden acceleration of religious growth. A race or nation can only assimilate from any advanced

하는 영재들과 함께, 당시의 진화 상태와 상당히 일치되고 호환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사회, 기후, 정치, 및 경제 조건은 모두, 종교 진화 과정과 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도덕성(道德性)은, 종교에, 다시 말해서, 진화 종교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종족의 도덕성이 종교의 형태를 규정한다.

사람의 종족들은 생소하고 새로운 종교를 오직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며; 실제로는 그것을 자신의 사회관행과 옛날의 믿는 방식에 끼워 맞춘다. 이런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특이한 부족의 예에서 잘 설명되는데, 이 부족의 사제들은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만 받아들인 후에,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계시의 취지는, 바로 이 부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 됐고, 절제 없는 성관계에,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구시대의 비난 받을만한 관습에 마음대로 빠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그리스도교인이 된 모든 자들은 이런 새롭고 덜 엄격한 그리스도교 개정판으로 즉시 전향했다.

종교는 한때 온갖 종류의 부적합하고 모순된 행태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비도덕적이거나 죄악 시되는 모든 것을 실제로 허용한 때가 있었다. 체험으로 배우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양심은, 인간의 행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양심은 인간의 혼에게 말씀하는 신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실존하는 현 단계의 사회관행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의 총합에 불과하며;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간답게 생각한 이상적 반응을 나타낼 뿐이다.

3. 진화 종교의 본성

인간의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을 지닌, 지나간 시대의 사회 계층에 대한 고찰이다. 의인화(擬人化)된 신들에 대한 사회관행은, 그런 신격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의 도덕률을 참되게 반영한다. 옛 종교와 신화는, 오래 전에 이름 없이 사라진 민족들의 신앙과 전통을 충실히 묘사한다. 이런 옛 종파 풍습은 새로운 경제 관습 및 사회 진화와 나란히 존속했고, 물론, 심하게 모순돼 보인다. 그 종파의 낡은 흔적들이, 과거의 민족 종교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종파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신조를 널리 펼치려고 형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종교는 언제든지 주로, 제례, 제례식, 관례, 예식, 및 교의(敎義)의 문제였다. 종교는 대개 끊임 없이 이간질하는 오류,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해를 끼치는 착각으로 오염됐다. 주문 외우기, 영

religion that which is reasonably consistent and compatible with its current evolutionary status, plus its genius for adaptation. Social, clima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re all influential in determining the course and progress of religious evolution. Social morality is not determined by religion, that is, by evolutionary religion; rather are the forms of religion dictated by the racial morality.

92:2.5 (1005.1) Races of men only superficially accept a strange and new religion; they actually adjust it to their mores and old ways of believing.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example of a certain New Zealand tribe whose priests, after nominally accepting Christianity, professed to have received direct revelations from Gabriel to the effect that this selfsame tribe had become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directing that they be permitted freely to indulge in loose sex relations and numerous other of their olden and reprehensible customs. And immediately all of the new-made Christians went over to this new and less exacting version of Christianity.

92:2.6 (1005.2) Religion has at one time or another sanctioned all sorts of contrary and inconsistent behavior, has at some time approved of practically all that is now regarded as immoral or sinful. Conscience, untaught by experience and unaided by reason, never has been, and never can be, a safe and unerring guide to human conduct. Conscience is not a divine voice speaking to the human soul. It is merely the sum total of the moral and ethical content of the mores of any current stage of existence; it simply represents the humanly conceived ideal of reaction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3. THE NATURE OF EVOLUTIONARY RELIGION

92:3.1 (1005.3) The study of human religion is the examination of the fossil-bearing social strata of past ages. The mores of the anthropomorphic gods are a truthful reflection of the morals of the men who first conceived such deities. Ancient religions and mythology faithfully portray the beliefs and traditions of peoples long since lost in obscurity. These olden cult practices persist alongside newer economic customs and social evolutions and, of course, appear grossly inconsistent. The remnants of the cult present a true picture of the racial religions of the past. Always remember, the cults are formed, not to discover truth, but rather to promulgate their creeds.

92:3.2 (1005.4) Religion has always been largely a matter of rites, rituals, observances, ceremonies, and dogmas. It has usually become tainted with that persistently mischief-making error, the

감{靈感}, 계시, 속죄, 회개, 죄 값, 중재{仲裁}, 제물, 기도, 고백, 경배, 죽은 뒤의 생존, 성례, 제례식, 대속{代贖}, 구원, 속죄, 계약, 부정{不淨}, 정화{淨化}, 예언, 원죄 등의 기본적인 종교 관념--이 모든 것은 유령에 대한 원시적 두려움이 있었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시 종교는, 무덤 저편의 생활을 포함하기까지 확장된, 물질 실존에 대한 갈등에 불과하다. 자아_보존 투쟁이, 상상하는 유령이나_영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런 신조를 준수했다. 그러나 진화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조심하기 바란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진화 종교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관념이 갖는 힘은, 그 개념이 확실하거나 진실한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생생하게 인간에게 호소하는가에 있다.

진화 종교는 변화 또는 개정을 준비하지 않으며; 과학과는 달리, 자체를 진취적으로 수정{修正}할 방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진화된 종교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추종자들이 그 종교를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며, “한때 성인{聖人}들에게 전해졌던 신앙은”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이고 오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 종파는 발전에 저항했는데, 진정한 진보는 종파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파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항상 종파에게 수정을 강제해야 한다.

두 가지 영향만이 자연 종교의 교의를 변경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느리게 진행되는 사회관행의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획기적 계시가 주기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가 느린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진취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은 요술쟁이로 취급받아 살해됐다. 종파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리고 긴 시간의 순환 주기 속에서 느리게 전진한다. 그러나 종파는 앞으로 나아간다. 유령을 믿는 진화된 믿음은, 계시된 종교 철학을 받아들이기 기초를 놓았고, 결국 이것은 그 근원인 미신을 파괴시킬 것이다.

종교는 여러 면에서 사회 발전을 방해해 왔지만, 종교가 없었다면 지속되는 도덕성이나 윤리가 없었을 것이며, 훌륭한 문명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는 비종교적 문화를 많이 산출했는데: 조각술{彫刻術}은 우상 만들기에서, 건축술은 신전 건축에서, 시문학은 주문에서, 음악은 경배의 영창{詠唱}에서, 연극은 영의 안내를 대신하는 행위에서, 그리고 춤은 계절에 맞춰 숭배하는 축제에서 기원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보존에 종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자연 종교는, 그 종교가 달리 육성하고 유지시켰을 바로 그 문명을, 무능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 역시 기록돼야 한다. 종교는 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노동을 낭비해 왔고 자본을 탕진해 왔으며; 가족 체제에 항상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으며; 평화와 선한 의지를 적

chosen-people delusion. The cardinal religious ideas of incantation, inspiration, revelation, propitiation, repentance, atonement, intercession, sacrifice, prayer, confession, worship, survival after death, sacrament, ritual, ransom, salvation, redemption, covenant, uncleanness, purification, prophecy, original sin — they all go back to the early times of primordial ghost fear.

92:3.3 (1005.5) Primitive religion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the struggle for material existence extended to embrace existence beyond the grave. The observances of such a creed represented the extension of the self-maintenance struggle into the domain of an imagined ghost-spirit world. But when tempted to criticize evolutionary religion, be careful. Remember, that is *what happened*; it is a historical fact. And further recall that the power of any idea lies, not in its certainty or truth, but rather in the vividness of its human appeal.

92:3.4 (1006.1) Evolutionary religion makes no provision for change or revision; unlike science, it does not provide for its own progressive correction. Evolved religion commands respect because its followers believe it is *The Truth*;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must, in theory, be both final and infallible. The cult resists development because real progress is certain to modify or destroy the cult itself; therefore must revision always be forced upon it.

92:3.5 (1006.2) Only two influences can modify and uplift the dogmas of natural religion: the pressure of the slowly advancing mores and the periodic illumination of epochal revelation. And it is not strange that progress was slow; in ancient days, to be progressive or inventive meant to be killed as a sorcerer. The cult advances slowly in generation epochs and age-long cycles. But it does move forward. Evolutionary belief in ghosts laid the foundation for a philosophy of revealed religion which will eventually destroy the superstition of its origin.

92:3.6 (1006.3) Religion has handicapped social development in many ways, but without religion there would have been no enduring morality nor ethics, no worth-while civilization. Religion enmothered much nonreligious culture: Sculpture originated in idol making, architecture in temple building, poetry in incantations, music in worship chants, drama in the acting for spirit guidance, and dancing in the seasonal worship festivals.

92:3.7 (1006.4) But while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religion wa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civilization, it should be recorded that natural religion has also done much to cripple and handicap the very civilization which it otherwise fostered and maintained. Religion has hampered industrial activ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has been wasteful of labor and has squandered capital; it has not always been helpful

절히 육성해오지 않았으며; 때로는 교육을 게을리하고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죽음을 부유하게 꾸미기 위해서 삶을 과도하게 빈곤하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 즉 인간의 종교는, 이런 모든 것과 그 외에 더 많은 잘못, 실책, 및 실수를 범하는 죄를 지어 왔으나; 그럼에도 종교는, 문화적 윤리, 문명화된 도덕성, 및 사회적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계시된 종교가 후대에 이런 많은 진화적 결점을 보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는 사람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제도였지만, 비길 데 없을 만큼 효과가 있었다. 인간의 종교는 오직 진화된 문명의 견지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이 동물의 진화에서 우세한 산물이 아니었다면, 그런 종교 발전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가 자본 축적을 촉진시켰으며; 특정한 종류의 일을 육성했고; 시간이 남는 사제들이 예술과 지식을 증진시켰으며; 결국 인류는 초기에 윤리적 기법의 이런 온갖 실책의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정직한 무당과 부정직한 무당 때문에 비용이 몹시 많이 지출됐지만, 그들은 그 값에 해당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학구적인 전문직과 과학 자체는 더부살이하는 사제계층에서 발생했다. 종교가 문명을 촉진시켰고 사회의 연속성을 제공했으며; 세세토록 도덕을 유지하는 경찰력이 돼왔다. 종교는 인간의 수양과 자아-통제를 제공했고, 이것이 지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종교는 진화에서 효과적인 채찍인데, 이 채찍은 게으르고 고통 받는 인류를, 지적으로 무기력한 자연 상태로부터 더 높은 이성과 지혜의 수준으로, 앞으로, 위로 가도록 사정없이 몰아간다.

그리고 동물에서 올라간 존재의 이런 신성시되는 유산인 진화 종교를, 계시된 종교로 계속 검열함으로써, 그리고 참된 과학의 맹렬한 용광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듬고 고귀하게 만들어야 한다.

4. 계시라는 선물

계시{啓示} 역시 진화하지만 항상 진취적이다. 세계 역사의 시대가 흐르는 동안, 종교의 계시는 항상 확장됐고, 더 많은 계몽{啓蒙}을 연속으로 이룩했다. 이어지는 진화 종교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것이 계시의 사명이다. 그러나 계시가 진화 종교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려면, 신성한 그런 방문은 그 교훈을 제공하는 그 시대의 사고{思考}와 반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훈을 묘사해야 한다. 이처럼 계시는 진화와 항상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한다. 계시 종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력에 반드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연관성 또는 유래와

to the family; it has not adequately fostered peace and good will; it has sometimes neglected education and retarded science; it has unduly impoverished life for the pretended enrichment of death. Evolutionary religion, human religion, has indeed been guilty of all these and many more mistakes, errors, and blunders; nevertheless, it did maintain cultural ethics, civilized morality, and social coherence, and made it possible for later revealed religion to compensate for these many evolutionary shortcomings.

92:3.8 (1006.5) Evolutionary religion has been man's most expensive but incomparably effective institution. Human religion can be justified only in the light of evolutionary civilization. If man were not the ascendant product of animal evolution, then would such a course of religious development stand without justification.

92:3.9 (1006.6) Religion facilitate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t fostered work of certain kinds; the leisure of the priests promoted art and knowledge; the race, in the end, gained much as a result of all these early errors in ethical technique. The shamans, honest and dishonest, were terribly expensive, but they were worth all they cost. The learned professions and science itself emerged from the parasitical priesthoods. Religion fostered civilization and provided societal continuity; it has been the moral police force of all time. Religion provided that human discipline and self-control which made wisdom possible. Religion is the efficient scourge of evolution which ruthlessly drives indolent and suffering humanity from its natural state of intellectual inertia forward and upward to the higher levels of reason and wisdom.

92:3.10 (1006.7) And this sacred heritage of animal ascent, evolutionary religion, must ever continue to be refined and ennobled by the continuous censorship of revealed religion and by the fiery furnace of genuine science.

4. THE GIFT OF REVELATION

92:4.1 (1007.1) Revelation is evolutionary but always progressive. Down through the ages of a world's history, the revelations of religion are ever-expanding and successively more enlightening. It is the mission of revelation to sort and censor the successive religions of evolution. But if revelation is to exalt and upstep the religions of evolution, then must such divine visitations portray teachings which are not too far removed from the thought and reactions of the age in which they are presented. Thus must and does revelation always keep in touch with evolution. Always must the religion of revelation be limited by man's capacity of receptivity.

92:4.2 (1007.2) But regardless of apparent connection

는 상관없이, 계시 종교는 항상 최종 가치를 갖는 어떤 **신격**을 믿고, 죽음 이후에 인격 정체성이 생존한다는 어떤 개념을 믿는 특징이 있다.

진화 종교는 감상적이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진화 종교는, 가상하는 유령_영 세계를 믿는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즉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으로 자극받는 인간의 믿음이 자_반사작용이다. 실재하는 영적 세계가 계시 종교를 제시하며; 계시 종교는, 우주의 **신격**들을 믿고 의존하려는 필사자의 갈망에, 지능을 초월하는 시공우주가 반응하는 것이다. 진화 종교는 인류가 진리를 찾으려고 멀리 돌아서 해매는 것을 묘사하며; 계시 종교는 바로 그 진리 **이다**.

종교적 계시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획기적 중요성을 갖는 경우는 다섯 번밖에 없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달라마시아의** 교훈. **캘리개스타 왕자**의 참모진에 속하는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이,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참된 개념을 **유란시아**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신격**에 대한 이런 확장되는 계시는, 행성의 탈퇴와 교육 체제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중단될 때까지, 30만 년 이상 계속됐다. **반**이 일한 것을 제외하고, **달라마시아**의 계시의 영향은 온 세상에서 실제로 상실됐다. 심지어 **노족속도**,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 100명의 교훈을 받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홍색인이 그 교훈을 가장 오래 간직했지만, **위대한 영**{靈}의 관념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종교에서 어렴풋한 개념에 불과했고,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그 개념은 크게 정화되고 강화됐다.

2. **에덴**의 교훈. **아담**과 **이브**가, 모든 진화하는 민족에게 **아버지** 개념을 다시 제시했다. 첫 **에덴**의 붕괴는, **아담**의 계시 과정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그 과정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중단된 **아담**의 교훈을 **셀족속** 제사장들이 이어갔고, 이 진리 가운데 더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레반트족속**의 종교적 진화의 전체 경향은 **셀족속**의 교훈으로 인해 변경됐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이 되자, 인류는 **에덴**의 시대에 후원받았던 계시를 대부분 잃어버렸다.

3. **살렘의 멜기세덱**. **네바돈**의 이 비상대책 **아들**이 **유란시아**에 세 번째 계시를 개시했다. 그의 교훈의 주요 훈계는 **신뢰**와 **신앙**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를 신뢰할 것을 가르쳤고, 신앙은 행위이며 그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선포했다. 그의 교훈은 다양한 진화 종교의 믿음 및 풍습과 점차 섞였으며, 마침내 기원후 첫 1,000년이 시작될 즈음, **유란시아**에 있었던 여러 신학 체계로 발전했다.

or derivation, the religions of revelation are always characterized by a belief in some Deity of final value and in some concept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identity after death.

92:4.3 (1007.3) Evolutionary religion is sentimental, not logical. It is man's reaction to belief in a hypothetical ghost-spirit world — the human belief-reflex, excited by the realization and fear of the unknown. Revelatory religion is propounded by the real spiritual world; it is the response of the superintellectual cosmos to the mortal hunger to believe in, and depend upon, the universal Deities. Evolutionary religion pictures the circuitous gropings of humanity in quest of truth; revelatory religion is that very truth.

92:4.4 (1007.4) There have been many events of religious revelation but only five of epochal significance. These were as follows:

92:4.5 (1007.5) 1. *The Dalamatian teachings.* The true concep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as first promulgated on Urantia by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This expanding revelation of Deity went on for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until it was suddenly terminated by the planetary secession and the disruption of the teaching regime. Except for the work of Van, the influence of the Dalamatian revelation was practically lost to the whole world. Even the Nodites had forgotten this truth by the time of Adam's arrival. Of all who received the teachings of the one hundred, the red men held them longest, but the idea of the Great Spirit was but a hazy concept in Amerindian religion when contact with Christianity greatly clarified and strengthened it.

92:4.6 (1007.6) 2. *The Edenic teachings.* Adam and Eve again portrayed the concept of the Father of all to the evolutionary peoples. The disruption of the first Eden halted the course of the Adamic revelation before it had ever fully started. But the aborted teachings of Adam were carried on by the Sethite priests, and some of these truths have never been entirely lost to the world. The entire trend of Levantine religious evolution was modified by the teachings of the Sethites. But by 2500 B.C. mankind had largely lost sight of the revelation sponsored in the days of Eden.

92:4.7 (1007.7) 3. *Melchizedek of Salem.* This emergency Son of Nebadon inaugurated the third revelation of truth on Urantia. The cardinal precepts of his teachings were *trust* and *faith*. He taught trust in the omnipotent beneficence of God and proclaimed that faith was the act by which men earned God's favor. His teachings gradually commingled with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various evolutionary religions and finally developed into those theologic systems present on Urantia at the opening of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개념을 **유란시아**에 네 번째로 제시했으며, 이런 가르침은 그 후로 계속 널리 유지됐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봉사**였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보살핌을 피조물 아들이 깨닫고, 또한 그에 반응해서 사랑으로 자발적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런 피조물 아들들은 형제들에게 자유 의지로 봉사하고, 이런 봉사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쁘게 깨닫는 것이었다.

5. **유란시아 문서**. 이 글도 본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본 문서는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가장 최근에 제시된 진리로 구성돼 있다. 본 문서는 전에 있었던 어떤 계시와도 다른데, 본 문서는 단일 우주 인격체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종합된 발표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계시든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늘이 베푸는 다른 모든 보살핌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며,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 조건에 실용적으로 맞춰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인함으로써 모든 계시의 즉각적인 영향과 권위를 손상시킬지도 모르지만,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에게 가장 최근에 이렇게 계시된 진리의 미래 영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주 명백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유란시아**에 임했다.

92:4.8 (1008.1) 4. *Jesus of Nazareth*. Christ Michael presented for the fourth time to Urantia the concept of God as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teaching has generally persisted ever since. The essence of his teaching was *love and service*, the loving worship which a creature son voluntarily gives in recognition of, and response to, the loving ministry of God his Father; the freewill service which such creature sons bestow upon their brethren in the joyous realization that in this service they are likewise serving God the Father.

92:4.9 (1008.2) 5. *The Urantia Papers*. The papers, of which this is one, constitute the most recent presentation of truth to the mortals of Urantia. These papers differ from all previous revelations, for they are not the work of a single universe personality but a composite presentation by many beings. But no revelation short of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can ever be complete. All other celestial ministrations are no more than partial, transient, and practically adapted to local conditions in time and space. While such admissions as this may possibly detract from the immediate force and authority of all revelations, the time has arrived on Urantia when it is advisable to make such frank statements, even at the risk of weakening the future influence and authority of this, the most recent of the revelations of truth to the mortal races of Urantia.

5. 위대한 종교 지도자

진화 종교에서는, 신{神}들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된 반면; 계시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성의 한정적인 모습을 따라서 형성됐을 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으며; 계시의 교훈과 진화의 산물이 조합돼서 합성된 믿음의 경우에, **하나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혼합된 것이다:

1. 여러 진화 종파의 선재{先在}하는 관념.
2. 계시된 종교의 탁월한 이상{理想}.
3. 위대한 종교 지도자, 즉 인류의 선지자와 선생들의 개인적인 관점.

대부분의 중대한 종교 시기는, 어떤 뛰어난 인물의 생애와 교훈으로 개시됐으며; 역사상 대다수의 가치 있는 도덕 운동을 지도층이 유래시켰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도자의 교훈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공경하려는 경향을 항상 보여 왔으며; 그가 선포한 진리를 잊었음에도, 그 인물을 경외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진화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로부터 그리고 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찾는 본능적 갈망이 있다. 이런 열망은, **행성 왕자**와 나중에 **물질 아들**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대하도

5. THE GREAT RELIGIOUS LEADERS

92:5.1 (1008.3) In evolutionary religion, the gods are conceived to exist in the likeness of man's image; in revelatory religion, men are taught that they are God's sons — even fashioned in the finite image of divinity; in the synthesized beliefs compounded from the teachings of revelation and the products of evolution, the God concept is a blend of:

92:5.2 (1008.4) 1. The pre-existent ideas of the evolutionary cults.

92:5.3 (1008.5) 2. The sublime ideals of revealed religion.

92:5.4 (1008.6) 3. The personal viewpoints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s, the prophets and teachers of mankind.

92:5.5 (1008.7) Most great religious epochs have been inaugurated by the life and teachings of some outstanding personality; leadership has originated a majority of the worth-while moral movements of history. And men have always tended to venerate the leader, even at the expense of his teachings; to revere his personality, even though losing sight of the truths which he proclaimed. And this is not without reason; there is an instinctive longing in the heart of evolutionary man for help from above and beyond. This craving is designed to anticipate the

록 고안됐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은 이런 초인적 지도자와 통치자를 빼앗겼으며, 따라서 초자연적 기원과 기적 같은 생애를 관련시키는 전설로 인간 지도자들을 덮어 가림으로써, 이런 손실을 계속 메우려고 애쓴다.

많은 종족이, 그들의 지도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했으며; 이런 지도자들의 생애는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지고, 각 집단들은 그 지도자가 재림{再臨}하기를 항상 고대한다. 중앙 **아시아**에 있는 부족민들은 아직도 **징기스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티벳**과 **중국**과 **인도**에서는 **부다**가;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가; **아메리카** 원주민은 **헤수나인 오나모나론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히브리인**은 대체로 **아담**이 물질 통치자로서 재림하기를 기다린다. **바벨론**에서 **마르덕** 신은, **아담**의 전설, 즉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아들 관념이 지속된 것이다.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후로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계 인종들 가운데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신적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힌 것과는 상관없이, 인류의 도덕성, 철학, 및 종교의 진보를 위해서, 이 선생들은 현재의 인물 지레받침이었고, 계시된 진리라는 지렛대가 그 받침 위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나가로부터 **구루 나낙**에 이르기까지 100만 년 동안, **유란시아**의 인류 역사에서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 이 시기 동안에 종교적 진리와 영적 신앙의 밀물과 썰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과거에, **유란시아**에서 종교가 부흥했던 각 시기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생애 및 교훈과 동일시 돼왔다. 근래의 선생들을 고려하면서, **아담** 이후에 **유란시아**의 주요 종교 시기를 일곱으로 묶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1. **셀족속 시대**. **아모사드**의 지도력 아래서 다시 탄생된 **셀족속** 제사장들은, **아담** 이후에 탁월한 선생이 됐다. 그들은 **안드족속**이 차지한 땅 전역에서 활약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그리스인**, **수메르인**, 및 **힌두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지속됐다. 그들은 **힌두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힌두** 신앙의 **브라만**으로 계속되고 있다. **셀족속**과 그 추종자들은, **아담**이 계시한 **삼위일체** 개념을 완전히 잊은 적이 전혀 없었다.

2. **멜기세덱 선교사 시대**. **유란시아**의 종교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기원전 2000년경에 **살렘**에 살면서 가르쳤을 때, 그가 임명했던 선생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부활됐다. 이 선교사들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고 선포했으며, 그들의 교훈은, 어떤 종교든지 즉시 나타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가르치는 후대의 선생들이 **유란시아** 종교들을 세우게 된 그 기초를 형성했다.

appearance on earth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later Material Sons. On Urantia man has been deprived of these superhuman leaders and rulers, and therefore does he constantly seek to make good this loss by enshrouding his human leaders with legends pertaining to supernatural origins and miraculous careers.

92:5.6 (1008.8) Many races have conceived of their leaders as being born of virgins; their careers are liberally sprinkled with miraculous episodes, and their return is always expected by their respective groups. In central Asia the tribesmen still look for the return of Genghis Khan; in Tibet, China, and India it is Buddha; in Islam it is Mohammed; among the Amerinds it was, in general, Adam's return as a material ruler. In Babylon the god Marduk was a perpetuation of the Adam legend, the son-of-God idea, the connecting link between man and God. Following the appearance of Adam on earth, so-called sons of God were common among the world races.

92:5.7 (1009.1) But regardless of the superstitious awe in which they were often held, it remains a fact that these teachers were the temporal personality fulcrums on which the levers of revealed truth depend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morality, philosophy, and religion of mankind.

92:5.8 (1009.2) There have been hundreds upon hundreds of religious leaders in the million-year human history of Urantia from Onagar to Guru Nanak. During this time there have been many ebbs and flows of the tide of religious truth and spiritual faith, and each renaissance of Urantian religion has, in the past, been identified with the life and teachings of some religious leader. In considering the teachers of recent times, it may prove helpful to group them into the seven major religious epochs of post-Adamic Urantia:

92:5.9 (1009.3) 1. *The Sethite period.* The Sethite priests, as regenerated under the leadership of Amosad, became the great post-Adamic teachers. They functioned throughout the lands of the Andites, and their influence persisted longest among the Greeks, Sumerians, and Hindus. Among the latter they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time as the Brahmans of the Hindu faith. The Sethites and their followers never entirely lost the Trinity concept revealed by Adam.

92:5.10 (1009.4) 2. *Era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Urantia religion was in no small measure regenerated by the efforts of those teachers who were commissioned by Machiventa Melchizedek when he lived and taught at Salem almost two thousand years before Christ. These missionaries proclaimed faith as the price of favor with God, and their teachings, though unproductive of any immediately appearing religions, nevertheless formed the foundations on which

3. **멜기세덱 이후 시대. 아메네펠과 이크나톤**이 이 기간에 가르쳤지만,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뛰어난 종교적 천재는, **레반트의 베두윈** 집단의 지도자이며 **히브리인** 종교의 창시자인--**모세**였다. **모세**는 일신교를 가르쳤다. 그가 말했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主)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 유령종파의 잔재를 뿌리 뽑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으며, 심지어 그 실행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했다. 후계자들이 **모세**의 일신교에 불순물을 섞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그의 여러 교훈으로 돌아갔다. **모세**의 위대함은 지혜와 총명함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개념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그런 진보된 믿음을 채택하도록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그토록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 **기원전 6세기.** 많은 사람이 이 세기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때는 **유란시아**에서 전에 증거했던 종교적 각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세기(世紀)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람들 중에는 **가우타마**,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및 **자이나교** 선생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가우타마**의 교훈은 **아시아**에 널리 퍼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부다**로 공경한다. **공자**와 **중국인**의 도덕성의 관계는, **플라톤**과 **그리스** 철학의 관계와 같았으며, 그 두 사람의 교훈에 종교적 영향이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둘 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인간성에 치중한 **공자**나, 이상주의에 치중한 **플라톤**보다는, **노자**가 **도**(道)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상상해냈다. **조로아스터**는, 널리 퍼진 이중 심령주의, 즉 선한 영과 악한 영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영원한 **신격** 관념과 빛이 결국에는 어둠을 이긴다는 관념을 확실히 강화시켰다.

5. **기원후 첫 세기.** 종교 선생으로서,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이 설립한 종파와 함께 출발했으며, 금식(禁食)과 형식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벗어났다. **예수**를 제외한다면, **다소**의 **바울**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들의 종교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이 진화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6. **기원후 6세기.** **모하메드**는 그가 살던 시대의 여러 신조(信條)보다 뛰어난 종교를 설립했다. 그의 종교는, 이방인 신념의 사회 요구 조건과, 자기 민족의 종교 생활의 모순점에 대한 저항이었다.

7. **기원후 15세기.** 이 기간에는 두 종교 운동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의 통일이 붕괴됐고, **동양**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합성됐다. **유**

later teachers of truth were to build the religions of Urantia.

92:5.11 (1009.5) 3. *The post-Melchizedek era.* Though Amenemope and Ikhnaton both taught in this period, the outstanding religious genius of the post-Melchizedek era was the leader of a group of Levantine Bedouins and the founder of the Hebrew religion — Moses. Moses taught monotheism. Said he: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God.” “The Lord he is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He persistently sought to uproot the remnants of the ghost cult among his people, even prescribing the death penalty for its practitioners. The monotheism of Moses was adulterated by his successors, but in later times they did return to many of his teachings. The greatness of Moses lies in his wisdom and sagacity. Other men have had greater concepts of God, but no one man was ever so successful in inducing large numbers of people to adopt such advanced beliefs.

92:5.12 (1009.6) 4.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Many men arose to proclaim truth in this, one of the greatest centuries of religious awakening ever witnessed on Urantia. Among these should be recorded Gautama, Confucius, Lao-tse, Zoroaster, and the Jainist teachers. The teachings of Gautama have become widespread in Asia, and he is revered as the Buddha by millions. Confucius was to Chinese morality what Plato was to Greek philosophy, and while there were religious repercussions to the teachings of both, strictly speaking, neither was a religious teacher; Lao-tse envisioned more of God in Tao than did Confucius in humanity or Plato in idealism. Zoroaster, while much affected by the prevalent concept of dual spiritism, the good and the bad, at the same time definitely exalted the idea of one eternal Deity and of the ultimate victory of light over darkness.

92:5.13 (1010.1) 5.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As a religious teacher, Jesus of Nazareth started out with the cult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John the Baptist and progressed as far as he could away from fasts and forms. Aside from Jesus, Paul of Tarsus and Philo of Alexandria were the greatest teachers of this era. Their concepts of religion have played a dominant part in the evolution of that faith which bears the name of Christ.

92:5.14 (1010.2) 6. *The sixth century after Christ.* Mohammed founded a religion which was superior to many of the creeds of his time. His was a protest against the social demands of the faiths of foreigners and against the incoherence of the religious life of his own people.

92:5.15 (1010.3) 7. *The fifteenth century after Christ.* This period witnessed two religious movements: the disruption of the unity of Christianity in the

럽의 경우에,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더 증진된 성장이 통일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까지 융통성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동양**에서는, **이슬람교**, **힌두교**, 및 **불교**의 혼합된 교훈을 **나낙**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크교**로 합성했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

유란시아의 미래는 의심할 여지없이, 종교적 진리를--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형제임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출현하는 특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지적{知的} 신학들이 **사타니아** 체계에서 **유란시아**의 특색을 많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미래에 나타날 이런 신지자들의 열렬하고 진지한 수고, 종교간 장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그런 여러 신학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경배 드리는 종교적 형제관계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6. 혼합 종교

20세기의 **유란시아** 종교들은, 사람의 경배 행동이 사회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견본을 제공한다. 많은 신념이 유령 종파 시대 이후로 거의 진보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그들 가운데 더러는 환경을 미약하게 믿지만, 한 부류로서의 종교적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오늘날 상태는 종교 진화가 시작했을 당시의 원시인 상태와 똑같다. 원시 종교의 기본 믿음은 죽음 이후의 생존이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념은, 진보된 진화 발전까지, 심지어 계시에서 첫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다야크**족은 가장 원시적인 종교 풍습만 진화시켜 왔다. 비교적 최근에 **에스키모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빈약한 **하나님** 개념을 갖게 됐으며; 유령을 믿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종류로 생존한다는 불분명한 관념을 가졌다. 오늘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에게는, 유령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숙한 조상 공경만 있다. **줄루**족은 유령에 대한 두려움과 제물을 바치는 종교를 진화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교인**과 **마호메트교도**의 선교 활동을 통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이 종교 진화에서 주물승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집단들은, 옛 **트라키아인**처럼, 일신교를 오랫동안 간직해 오고 있는데, **트라키아인**도 불멸을 믿었다.

유란시아에서,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본 문서들이 기록되던 시기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신학 체계로 섞이고 합병되는 동시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진보하고 있었다. 이런 종교들, 즉 20세기 **유란시아** 종교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1. **힌두교** --가장 오래됐음.

Occident and the synthesis of a new religion in the Orient. In Europe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had attained that degree of inelasticity which rendered further growth incompatible with unity. In the Orient the combined teachings of Islam, Hinduism, and Buddhism were synthesized by Nanak and his followers into Sikhism, one of the most advanced religions of Asia.

92:5.16 (1010.4) The future of Urantia will doubtless be characterized by the appearance of teachers of religious truth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fraternity of all creatures. But it is to be hoped that the ardent and sincere efforts of these future prophets will be directed less toward the strengthening of interreligious barriers and more toward the augmentation of the religious brotherhood of spiritual worship among the many followers of the differing intellectual theologies which so characterize Urantia of Satania.

6. THE COMPOSITE RELIGIONS

92:6.1 (1010.5) Twentieth-century Urantia religions present an interesting study of the social evolution of man's worship impulse. Many faiths have progressed very little since the days of the ghost cult. The Pygmies of Africa have no religious reactions as a class, although some of them believe slightly in a spirit environment. They are today just where primitive man was when the evolution of religion began. The basic belief of primitive religion was survival after death. The idea of worshiping a personal God indicates advanced evolutionary development, even the first stage of revelation. The Dyaks have evolved only the most primitive religious practices. The comparatively recent Eskimos and Amerinds had very meager concepts of God; they believed in ghosts and had an indefinite idea of survival of some sort after death. Present-day native Australians have only a ghost fear, dread of the dark, and a crude ancestor veneration. The Zulus are just evolving a religion of ghost fear and sacrifice. Many African tribes, except through missionary work of Christians and Mohammedans, are not yet beyond the fetish stage of religious evolution. But some groups have long held to the idea of monotheism, like the onetime Thracians, who also believed in immortality.

92:6.2 (1010.6) On Urantia, evolutionary and revelatory religion are progressing side by side while they blend and coalesce into the diversified theologic systems found in the world in the times of the inditement of these papers. These religions, the religions of twentieth-century Urantia, may be enumerated as follows:

92:6.3 (1011.1) 1. Hinduism — the most ancient.

2. **히브리인** 종교.

3. **불교**.

4. **공자**의 교훈.

5. **도교**의 믿음.

6. **조로아스터교**.

7. **신토**{神道}.

8. **자이나교**.

9. **그리스도교**.

10. **이슬람교**.

11. **시크교** --가장 최근.

고대에 가장 진보된 종교는 **유대교**와 **힌두교**였으며,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 종교 발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왔다. **힌두인**과 **히브리인**은 모두 자기네 종교만이 영감과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으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의 참된 신앙의 타락한 형태라고 믿었다.

인도는, **힌두교**, **시크교**, **마호메트교**, 및 **자이나교**로 갈라져있는데, 각각 **하나님**, 사람, 및 우주에 대해 가지각색으로 이해해서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도교**와 **공자**의 교훈을 따르고; **일본**에서는 **신토**를 숭배한다.

국제적이고 종족을 넘어선 주요 신앙은, **히브리교**, **불교**,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 등이다. **불교**는 **실론**과 **버마**에서 뿔어나가, **티벳**과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 **불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만 이에 맞먹을 정도로, 여러 민족의 사회관행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

히브리인 종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일신교로 바뀌는 철학적 과도기를 포함하며;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 사이의 진화 연결고리다. **히브리인**은, 초기에 진화된 신들을 따르다가, 계시의 **하나님**을 직접 받아들이게 된 유일한 서방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사야** 시대 전에는 광범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 **이사야**는 **우주의 창조주**와 종족 신격 개념이 섞여서 합쳐진 개념을 다시 한 번 가르쳤다: “오 만군의 주{主},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한때 **서양** 문명이 살아남을 희망은, 선{善}에 대한 탁월한 **히브리** 개념과, 미{美}에 대한 진보된 **헬라** 개념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에 관한 종교인데, **유대교** 신학에 기초하고, 특정한 **조로아스터** 교훈과 **그리스** 철학에 융화돼서 더 변경됐으며, 주로: **필로**, **베드로**, 및 **바울**, 세 사람이 이를 조직화했다. **바울** 시대 이후로 이 종교는 여러 국면의 진화를 거쳤고 너무 철저히 **서양화** 됐으며

92:6.4 (1011.2) 2. The Hebrew religion.

92:6.5 (1011.3) 3. Buddhism.

92:6.6 (1011.4) 4. The Confucian teachings.

92:6.7 (1011.5) 5. The Taoist beliefs.

92:6.8 (1011.6) 6. Zoroastrianism.

92:6.9 (1011.7) 7. Shinto.

92:6.10 (1011.8) 8. Jainism.

92:6.11 (1011.9) 9. Christianity.

92:6.12 (1011.10) 10. Islam.

92:6.13 (1011.11) 11. Sikhism — the most recent.

92:6.14 (1011.12) The most advanced religions of ancient times were Judaism and Hinduism, and each respectively has greatly influenced the course of religious development in Orient and Occident. Both Hindus and Hebrews believed that their religions were inspired and revealed, and they believed all others to be decadent forms of the one true faith.

92:6.15 (1011.13) India is divided among Hindu, Sikh, Mohammedan, and Jain, each picturing God, man, and the universe as these are variously conceived. China follows the Taoist and the Confucian teachings; Shinto is revered in Japan.

92:6.16 (1011.14) The great international, interracial faiths are the Hebraic, Buddhist, Christian, and Islamic. Buddhism stretches from Ceylon and Burma through Tibet and China to Japan. It has shown an adaptability to the mores of many peoples that has been equaled only by Christianity.

92:6.17 (1011.15) The Hebrew religion encompasses the philosophic transition from polytheism to monotheism; it is an evolutionary link between the religions of evolution and the religions of revelation. The Hebrews were the only western people to follow their early evolutionary gods straight through to the God of revelation. But this truth never became widely accepted until the days of Isaiah, who once again taught the blended idea of a racial deity combined with a Universal Creator: “O Lord of Hosts, God of Israel, you are God, even you alone; you have made heaven and earth.” At one time the hope of the survival of Occidental civilization lay in the sublime Hebraic concepts of goodness and the advanced Hellenic concepts of beauty.

92:6.18 (1011.16) The Christian religion is the religion about the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based upon the theology of Judaism, modified further through the assimilation of certain Zoroastrian teachings and Greek philosophy, and formulated primarily by three individuals: Philo, Peter, and Paul. It has passed through many phases of evolution since

로, 유럽 이외의 여러 민족이, **그리스도교**를 낳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에게 준 이상한 계시로 간주한 것은 아주 당연했다.

이슬람교는, 북 아프리카, 레반트, 및 남동부 아시아의 종교-문화적 연결고리다. **이슬람교**를 일신교로 만든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교훈과 관련된 **유대교** 신학이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은 진보된 **삼위일체** 교훈 앞에서 망설였으며; 신성한 세 인격체와 하나의 **신격**에 대한 교리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진보되고 계시된 진리를 **순식간에** 받아들이도록, 진화 정신을 소유한 자들을 설득하기는 언제나 어렵다. 사람은 진화된 피조물이며, 대체로 진화 기법으로 자기 종교를 획득해야만 된다.

조상 숭배는 종교 진화에서 한때 결정적 진보를 이루도록 기여했지만, 이런 원시 개념이, **불교**와 **힌두교**처럼 비교적 더 진보를 이룩한 종교들이 가득 들어찬, **중국**, **일본**, 및 **인도**에서 존속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인 동시에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는, 조상숭배가 발전해서, 민족의 신들을 공경하고 민족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세기에, 영웅을 숭배하는 이런 국가적 종교는, **서양**의 여러 종족과 국가의 특징을 이루는, 여러 가지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속주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런 태도 대부분 역시,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이름난 대학과 큰 산업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이런 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관념은, 종교가 “풍족한 삶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민족 종교”는 **로마** 초기의 황제 숭배로, 그리고 -- 국가의 황제 가족을 숭배하는 -- **신토**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7. 종교의 추후 진화

종교는 결코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없다. 철학은 정말로 과학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지만, 종교는 진화된 것이거나 계시된 것으로, 아니면 오늘날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가능한 조합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새 종교는 창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진화**에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불시에** 계시된다. 진화로 새롭게 형성되는 모든 종교는, 단순히 옛 믿음에 대한 진보된 표현, 즉 새로운 적응과 조정에 불과하다. 옛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및 기타 동시대 종파들의 토양과 형태로부터 **시크교**가 싹트고 꽃핀 것처럼, 새로운 것과 융합된다. 원시 종교는 매우 민주적이었으며; 미개인은 빌려주기와 빌리기를 잘했다. 오직 계시된 종교에서만, 독재적이고 편협한 자기본위의 신학이 나타났다.

the time of Paul and has become so thoroughly Occidentalized that many non-European peoples very naturally look upon Christianity as a strange revelation of a strange God and for strangers.

92:6.19 (1011.17) Islam is the religio-cultural connective of North Africa, the Levant, and southeastern Asia. It was Jewish theology in connection with the later Christian teachings that made Islam monotheistic. The followers of Mohammed stumbled at the advanced teachings of the Trinity;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doctrine of three divine personalities and one Deity. It is always difficult to induce evolutionary minds *suddenly* to accept advanced revealed truth. Man is an evolutionary creature and in the main must get his religion by evolutionary techniques.

92:6.20 (1012.1) Ancestor worship onetime constituted a decided advance in religious evolution, but it is both amazing and regrettable that this primitive concept persists in China, Japan, and India amidst so much that is relatively more advanced, such as Buddhism and Hinduism. In the Occident, ancestor worship developed into the veneration of national gods and respect for racial hero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hero-venerating nationalistic religion makes its appearance in the various radical and nationalistic secularisms which characterize many races and nations of the Occident. Much of this same attitude is also found in the great universities and the larger industrial communities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 Not very different from these concepts is the idea that religion is but “a shared quest of the good life.” The “national religions” are nothing more than a reversion to the early Roman emperor worship and to Shinto — worship of the state in the imperial family.

7. THE FURTHER EVOLUTION OF RELIGION

92:7.1 (1012.2) Religion can never become a scientific fact. Philosophy may, indeed, rest on a scientific basis, but religion will ever remain either evolutionary or revelatory, or a possible combination of both, as it is in the world today.

92:7.2 (1012.3) New religions cannot be invented; they are either evolved, or else they are *suddenly revealed*. All new evolutionary religions are merely advancing expressions of the old beliefs, new adaptations and adjustments. The old does not cease to exist; it is merged with the new, even as Sikhism budded and blossomed out of the soil and forms of Hinduism, Buddhism, Islam, and other contemporary cults. Primitive religion was very democratic; the savage was quick to borrow or lend. Only with revealed religion did autocratic and intolerant theologic egotism appear.

유란시아의 여러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그리고 사람에게 **아버지**를 깨닫도록 하기, 모두 유익하다. 어떤 종교인 집단이든지, 자기 신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런 태도는 신앙의 확신보다 신학적 오만함을 나타낸다. 다른 모든 신앙에 담긴 최고의 진리를, 유익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흡수하지 못할 **유란시아** 종교는 없는데, 모두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웃의 미신적인 것과 시대에 뒤떨어진 제례식에 있는 최악의 것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생한 영적 신앙에서 최선의 것들을 빌려오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 모든 종교는, 사람이 똑같은 영적 인도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 반응을 보인 결과로 발생해 왔다. 이 종교들은 신조, 교의, 및 제례식에서 균일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곧 이것들은 지적인 것이지만; 언젠가는 만유의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경배에서 통일을 이룰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영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은 영원한 진실이다.

원시 종교는 주로 물질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었지만; 문명은 종교의 가치를 증진시켰는데, 참된 종교는 의미 있고 지고{至高}한 가치의 공헌에 자기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서 윤리는 도덕을 다루는 철학이 되고, 도덕성은 최고의 의미와 최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곧 신성하고 영적인 이상{理想}에 따라서--자아를 훈련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종교는, 자발적이고 정교한 헌신, 즉 사랑의 충성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된다.

종교의 질{質}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표시된다:

1. 가치기준의 수준 --충성심.
2. 의미 있는 것들의 깊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식별하는 데 개인이 민감해짐.
3. 헌신의 강도{強度} --이런 신성한 가치기준에 헌신하는 정도.
4. 이상주의로 영적 생활을 하는 이런 시공우주 통로에서, 인격이 구속받지 않고 진보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신분과 우주에서 끝없이 진보하는 시민신분임을 깨닫는 것.

종교적 의미는, 자녀가 전능{全能} 관념을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자아_의식 속에서 진보한다. 그리고 그런 자녀의 종교 체험 전체는 주로, 두려움과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부모_자식 관계를 지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예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_사랑하는 개념으로 옮겨가기까지 항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문명, 과학, 및 진보된 종교는,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발생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더 훌륭히 계몽된, 교양 있는 필사자들은, **신격**과 교류할 때 중간 매개체에 의존하려는 모든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92:7.3 (1012.4) The many religions of Urantia are all good to the extent that they bring man to God and bring the realization of the Father to man. It is a fallacy for any group of religionists to conceive of their creed as *The Truth*; such attitudes bespeak more of theological arrogance than of certainty of faith. There is not a Urantia religion that could not profitably study and assimilate the best of the truths contained in every other faith, for all contain truth. Religionists would do better to borrow the best in their neighbors' living spiritual faith rather than to denounce the worst in their lingering superstitions and outworn rituals.

92:7.4 (1012.5) All these religions have arisen as a result of man's variable intellectual response to his identical spiritual leading. They can never hope to attain a uniformity of creeds, dogmas, and rituals — these are intellectual; but they can, and some day will, realize a unity in tru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for this is spiritual, and it is forever true, in the spirit all men are equal.

92:7.5 (1012.6) Primitive religion was largely a material-value consciousness, but civilization elevates religious values, for true religion is the devotion of the self to the service of meaningful and supreme values. As religion evolves, ethics becomes the philosophy of morals, and morality becomes the discipline of self by the standards of highest meanings and supreme values — divine and spiritual ideals. And thus religion becomes a spontaneous and exquisite devotio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loyalty of love.

92:7.6 (1013.1) The quality of a religion is indicated by:

92:7.7 (1013.2) 1. Level of values — loyalties.

92:7.8 (1013.3) 2. Depth of meanings — the sensitization of the individual to the idealistic appreciation of these highest values.

92:7.9 (1013.4) 3. Consecration intensity — the degree of devotion to these divine values.

92:7.10 (1013.5) 4. The unfettered progress of the personality in this cosmic path of idealistic spiritual living,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and never-ending progressive citizenship in the universe.

92:7.11 (1013.6) Religious meanings progress in self-consciousness when the child transfers his ideas of omnipotence from his parents to God. And the entire religious experience of such a child is largely dependent on whether fear or love has dominate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laves have always experienced great difficulty in transferring their master-fear into concepts of God-love. Civilization, science, and advanced religions must deliver mankind from those fears born of the dread of natural phenomena. And so should greater enlightenment deliver educated mortals from all

다.

인간답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로부터, 신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공경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상숭배로 머뭇거리는 이런 중간 단계를 피할 수 없지만, 이런 단계는 내주하는 거룩한 영의 촉진시키는 사역을 인식함으로써 단축돼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신격** 개념뿐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돌리기로 선택한 영웅의 성품에도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신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된 자들이, 그 사람을-- 곧 썩썩하고 용감한 영웅인--**요셉**의 아들 **예수** **아들**-- 경시한 것은, 가장 유감스런 일이다.

현대인은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만, 사회의 변질 작용이 가속되고 전례 없이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현대인의 경건한 관습은 혼란에 빠지고 의심을 받는다. 생각이 깊은 남녀는 종교가 재규명{再糾明} 되기를 바라며, 이런 요구는 종교가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를 강요할 것이다.

현대인은, 2천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이, 인간의 가치를 한 세대 동안에 다시 조정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교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는 생각하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된 종교는 언제든지, 한꺼번에, 모든 영구적 문명의 영원한 기초이자 안내하는 별이 돼야 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dependence on intermediaries in communion with Deity.

92:7.12 (1013.7) These intermediate stages of idolatrous hesitation in the transfer of veneration from the human and the visible to the divine and invisible are inevitable, but they should be shortened by the consciousness of the facilitating ministry of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Nevertheless, man has been profoundly influenced, not only by his concepts of Deity, but also by the character of the heroes whom he has chosen to honor. It is most unfortunate that those who have come to venerate the divine and risen Christ should have overlooked the man — the valiant and courageous hero — Joshua ben Joseph.

92:7.13 (1013.8) Modern man is adequately self-conscious of religion, but his worshipful customs are confused and discredited by his accelerated social metamorphosis and unprecedented scientific developments. Thinking men and women want religion redefined, and this demand will compel religion to re-evaluate itself.

92:7.14 (1013.9) Modern man i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making more readjustments of human values in one generation than have been made in two thousand years. And this all influences the social attitude toward religion, for religion is a way of living as well as a technique of thinking.

92:7.15 (1013.10) True religion must ever be,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eternal foundation and the guiding star of all enduring civilizations.

92:7.16 (1013.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3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 092

유란시아 책

09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3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섹션

소개

1. 마키벤타의 육신화
2. 살렘의 현자
3. 멜기세덱의 교훈
4. 살렘 종교
5. 아브라함을 선택함
6.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7. 멜기세덱의 선교사들
8. 멜기세덱이 떠남
9. 멜기세덱이 떠난 후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PAPER 93
MACHIVENTA MELCHIZEDEK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achiventa Incarnation
2. The Sage of Salem
3. Melchizedek's Teachings
4. The Salem Religion
5. The Selection of Abraham
6.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7.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8. Departure of Melchizedek
9. After Melchizedek's Departure
10. Present Status of Machiventa Melchizedek

소개

멜기세덱은 비상대책 **아들**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방우주의 세계들에서 놀랄만한 범위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든지, 또는 유별난 어떤 것이 시도될 때, 그 일이 매우 흔히 **멜기세덱**에게 배정된다. 비상 사태에서, 그리고 우주의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심지어 인격이 형태화되는 물리적 수준에서도 작용하는 **멜기세덱 아들**들의 역량은, 그들 계층에만 독특하게 있다. 이렇게 변형하는 범위의 인격 활동에, **생명 운반자**만이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우주 아들신분의 **멜기세덱** 계층은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열두 명의 단체가, **생명 운반자**들과 공동으로 봉사했다. 후대의 열두 명의 단체는, **캘리개스차** 탈퇴 직후에 너희 세상을 위한 관제인이 됐고, **아담**과 **이브** 시대가 이를 때까지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열두 명의 이 **멜기세덱**은, **아담**과 **이브**가 태만했을 때 **유란시아**로 돌아왔으며, 그 후에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

INTRODUCTION

93:0.1 (1014.1) THE Melchizedeks are widely known as emergency Sons, for they engage in an amazing range of activities on the worlds of a local universe. When any extraordinary problem arises, or when something unusual is to be attempted, it is quite often a Melchizedek who accepts the assignment. The ability of the Melchizedek Sons to function in emergencies and on widely divergent levels of the universe, even on the physical level of personality manifestation, is peculiar to their order. Only the Life Carriers share to any degree this metamorphic range of personality function.

93:0.2 (1014.2) The Melchizedek order of universe sonship has been exceedingly active on Urantia. A corps of twelve served in conjunction with the Life Carriers. A later corps of twelve became receivers for your world shortly after the Caligastia secession and continued in authority until the time of Adam and Eve. These twelve Melchizedeks returned to Urantia upon the default of Adam and

들로서 **유란시아**의 명목상 **행성 왕자**가 된 그날까지, 행성 관재인으로서 계속 활동했다.

Eve, and they continued thereafter as planetary receivers on down to the day when Jesus of Nazareth, as the Son of Man, became the titular Planetary Prince of Urantia.

1. 마키벤타의 육신화

게시된 진리는,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사명이 실패한 후로, 수천 년 동안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인간 종족들은, 지적으로 진보했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 **하 나님** 개념은 사람의 정신 속에서 매우 모호해졌다.

열두 명의 **멜기세덱** 관재인은 그들의 행성에 **미가엘**의 증여가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지 몰랐으며, 따라서 그들은 정식 협의회를 소집했고, 진리의 빛을 **유란시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요청했다. 이런 청원은, “**사타니아** 606 번에서 직무 수행은 **멜기세덱** 관리인들 손에 완전히 위탁됐다”는 명령과 함께 기각됐다. 그러자 관재인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증여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수호해야 하고, 이 증여 **아들**은 “물수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부터 행성의 여러 직함을 구출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자신들의 방책에 의존하도록 너무도 완전하게 내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열두 명의 행성 관재인 가운데 하나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네바돈** 전체 역사상 여섯 번째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이것은 땅에서 한 현세적 사람으로서 그 영역에 인격화하는 것, 즉 세상에 이바지하는 비상대책 **아들**로서 자신을 증여하는 것이었다. **살빙톤**의 권위자들이 이런 모험을 허락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제 육신화는, **팔레스틴**에서, 앞으로 **살렘**이라는 도시가 될 장소 근처에서 이뤄졌다.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화 되는 전체 진행사항은, **생명 운반자들**, 어떤 **총괄 물리 통제관들**, 그리고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천상{天上}의 인격체들의 협동을 얻어서, 행성 관재인들이 완결했다.

2. 살렘의 현자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기 1,973년 전이었다. 그의 출현은 돌보일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물질화 과정은 인간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그 중요한 날에 그가 필사적 사람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수메르** 혈통이고 **갈대아**의 목축업자인, **암돈**의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

1. THE MACHIVENTA INCARNATION

93:1.1 (1014.3) Revealed truth was threatened with extinction during the millenniums which followed the miscarriage of the Adamic mission on Urantia. Though making progress intellectually, the human races were slowly losing ground spiritually. About 3000 B.C. the concept of God had grown very hazy in the minds of men.

93:1.2 (1014.4)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knew of Michael's impending bestowal on their planet, but they did not know how soon it would occur; therefore they convened in solemn council and petitioned the Most Highs of Edentia that some provision be made for maintaining the light of truth on Urantia. This plea was dismissed with the mandate that “the conduct of affairs on 606 of Satania is fully in the hands of the Melchizedek custodians.” The receivers then appealed to the Father Melchizedek for help but only received wor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uphold truth in the manner of their own election “until the arrival of a bestowal Son,” who “would rescue the planetary titles from forfeiture and uncertainty.”

93:1.3 (1014.5) And it was in consequence of having been thrown so completely on their own resources that Machiventa Melchizedek, one of the twelve planetary receivers, volunteered to do that which had been done only six times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to personalize on earth as a temporary man of the realm, to bestow himself as an emergency Son of world ministry. Permission was granted for this adventure by the Salvington authorities, and the actual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was consummated near what was to become the city of Salem, in Palestine. The entire transaction of the materialization of this Melchizedek Son was completed by the planetary receiver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ife Carriers, certai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other celestial personalities resident on Urantia.

2. THE SAGE OF SALEM

93:2.1 (1015.1) It was 1,973 years before the birth of Jesus that Machiventa was bestowed upon the human races of Urantia. His coming was unspectacular; his materialization was not witnessed by human eyes. He was first observed by mortal man on that eventful day when he entered the tent of Amdon, a Chaldean herder of Sumerian extraction. And the proclamation of his

한 선포는, 그가 이 목동에게 했던,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다”라는 간단한 한 마디에 들어 있었다.

놀랐다가 정신을 차린 그 목축업자는, **멜기세덱**에게 여러 질문을 퍼부은 후에,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권했으며, 이것은 **마키벤타**가 자신의 긴 우주 경력에서 물질 음식을 처음 먹은 순간이었고, 물질 존재로 있던 94년의 생애 동안, 음식물이 그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별 빛 아래서 대화할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팔을 휘두르면서 **암돈**에게 말했다;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은 창공에 있는 별들을 창조한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도 지으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살렘** 공동체의 핵심을 형성하게 됐던, 학생, 제자, 그리고 신자들 한 무리를 자기 주변에 모았다. 그는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살렘**의 현자{賢者}로서 **팔레스틴** 전역에 곧 알려졌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 일부 부족 가운데서는 그가 종종 **살렘** 왕 또는 족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여부스**라는 도시가 된 장소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신체의 외모로 보면, **멜기세덱**은 당시의 **놋족** **속과 수메르인**이 섞인 사람을 닮았는데, 키는 거의 6피트에 달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갈대아** 말을 했고, 여섯 가지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 그의 복장은 **가나안족** 사제와 거의 흡사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가슴에 달고 있는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이었는데, 이것은 **사타니아**에서 **낙원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그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 개의 동심원 모양의 이 표시를 그의 추종자들이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혀졌다.

마키벤타가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기는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이 땅에 자손을 남겨둘 수도 없었다. 그의 육신은, 남자의 모습을 닮은 반면, 실제로는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 된 100명의 요원이 사용했던, 특별하게 지어진 종류의 몸을 갖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인간 종족의 생명 원형질을 전혀 갖지 않았다. 또한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없었다. **마키벤타**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면, 그의 육체 기능은 점차 저하했을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그는 물질 몸이 붕괴되기 훨씬 전에, 94년에 걸친 자신의 증여 사명을 마무리했다.

mission was embodied in the simple statement which he made to this shepherd, “I am Melchizedek,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the one and only God.”

93:2.2 (1015.2) When the herder had recovered from his astonishment, and after he had plied this stranger with many questions, he asked Melchizedek to sup with him, and this was the first time in his long universe career that Machiventa had partaken of material food, the nourishment which was to sustain him throughout his ninety-four years of life as a material being.

93:2.3 (1015.3) And that night, as they talked out under the stars, Melchizedek began his mission of the revelation of the truth of the reality of God when, with a sweep of his arm, he turned to Amdon, saying, “El Elyon, the Most High, is the divine creator of the stars of the firmament and even of this very earth on which we live, and he is also the supreme God of heaven.”

93:2.4 (1015.4) Within a few years Melchizedek had gathered around himself a group of pupils, disciples, and believers who formed the nucleus of the later community of Salem. He was soon known throughout Palestine as the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and as the sage of Salem. Among some of the surrounding tribes he was often referred to as the sheik, or king, of Salem. Salem was the site which after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became the city of Jebus, subsequently being called Jerusalem.

93:2.5 (1015.5) In personal appearance, Melchizedek resembled the then blended Nodite and Sumerian peoples, being almost six feet in height and possessing a commanding presence. He spoke Chaldean and a half dozen other languages. He dressed much as did the Canaanite priests except that on his breast he wore an emblem of three concentric circles, the Satania symbol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 course of his ministry this insignia of three concentric circles became regarded as so sacred by his followers that they never dared to use it, and it was soon forgotten with the passing of a few generations.

93:2.6 (1015.6) Though Machiventa lived after the manner of the men of the realm, he never married, nor could he have left offspring on earth. His physical body, while resembling that of the human male, was in reality on the order of those especially constructed bodies used by the one hundred materialized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except that it did not carry the life plasm of any human race. Nor was there available on Urantia the tree of life. Had Machiventa remained for any long period on earth, his physical mechanism would have gradually deteriorated; as it was, he terminated his bestowal mission in ninety-four years long before his material body had begun to disintegrate.

육신화됐던 이 **멜기세덱**은 **사고 조율사**를 받았는데, 그 **조율사**는 시간 감시자와 육신의 선도자(先導者)로서 그의 초인적 인물 속에 내주했고, 그리하여 **유란시아** 문제들과, 육신화된 **아들** 속에 내주하는 기법에 대해, 체험과 실무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것은 이 **아버지** 영으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의 인간 정신 속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약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유란시아**에서 두 정신 속에서 활약했던 유일한 **조율사**였지만, 두 정신 모두 인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했다.

직접 육신화 된 동안, **마키벤타**는 열한 명의 행성 관리단(管理團) 동료와 완전하게 접촉했지만,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인격체와는 대화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제외하고는, 인간 이외의 초인적 지성체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

3. 멜기세덱의 교훈

10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여러 학교를 체계화 했는데, 초기의 **셀족속** 사제들이 두 번째 **에덴**에서 개발했던 옛 체계를 본떠서 만들었다. 나중에 전향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작한 십일조 체계 역시, 고대의 **셀족속**이 유지한 전통적 방법에서 유래했다.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우주의 **신격** 개념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와 관련시키도록 내버려 뒀는데, 그는 이 **아버지**를 **엘 엘리온**이라고--곧 **지고자**라고-- 불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지위와 **예루셈** 직무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는, **미가엘**의 증여가 완료될 때까지, **유란시아**에 대해서 거의 상관하지 않았다. **살렘**의 학생들 대다수에게는, **에덴시아**가 하늘이었고, **지고자**가 **하나님**이었다.

멜기세덱이 자신의 증여에 대한 표지로 채택했던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 천사, 및 **하나님**의 세 왕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됐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이 세 개의 원이, 신성하게 유지하고 지휘하는 **낙원 삼위일체**의 무한성, 영원성, 및 보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아브리함**조차, 세 **지고자**가 하나로 작용한다고 배운 바에 따라서, 오히려 이 형상이 **에덴시아**의 세 **지고자**를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멜기세덱**은, 자신의 표지가 상징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가르쳤던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노라티아덱** 성좌의 세 **보론다덱** 통치자와 관련시켰다.

93:2.7 (1016.1) This incarnated Melchizedek received a Thought Adjuster, who indwelt his superhuman personality as the monitor of time and the mentor of the flesh, thus gaining that experience and practical introduction to Urantian problems and to the technique of indwelling an incarnated Son which enabled this spirit of the Father to function so valiantly in the human mind of the later Son of God,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is is the only Thought Adjuster who ever functioned in two minds on Urantia, but both minds were divine as well as human.

93:2.8 (1016.2) During the incarnation in the flesh, Machiventa was in full contact with his eleven fellows of the corps of planetary custodians, but he could not communicate with other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ide from the Melchizedek receivers, he had no more contact with superhuman intelligences than a human being.

3. MELCHIZEDEK'S TEACHINGS

93:3.1 (1016.3) With the passing of a decade, Melchizedek organized his schools at Salem, patterning them on the olden system which had been developed by the early Sethite priests of the second Eden. Even the idea of a tith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his later convert Abraham, was also derived from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methods of the ancient Sethites.

93:3.2 (1016.4) Melchizedek taught the concept of one God, a universal Deity, but he allowed the people to associate this teaching with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whom he termed El Elyon — the Most High. Melchizedek remained all but silent as to the status of Lucifer and the state of affairs on Jerusem.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had little to do with Urantia until after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To a majority of the Salem students Edentia was heaven and the Most High was God.

93:3.3 (1016.5) The symbol of the three concentric circles, which Melchizedek adopted as the insignia of his bestowal, a majority of the people interpreted as standing for the three kingdoms of men, angels, and God. And they were allowed to continue in that belief; very few of his followers ever knew that these three circles were emblematic of the infinity, eternity, and universality of the Paradise Trinity of divine maintenance and direction; even Abraham rather regarded this symbol as standing for the three Most Highs of Edentia, as he had been instructed that the three Most Highs functioned as one. To the extent that Melchizedek taught the Trinity concept symbolized in his insignia, he usually associated it with the three Vorondadek ruler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멜기세덱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곤 유란시아**의 **하나님**들--이 통치한다는 사실보다 더 깊이, 평화원 추종자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지방우주의 운행과 조직을 포함하는 고급{高級} 진리를 일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한편 **켄족속**이었던 그의 뛰어난 제자 **노르단**과 그 무리에 속한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연방우주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다.

멜기세덱은 **카트로** 집안과 30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 그 집안의 식구들은 이런 고급 진리를 많이 알았고, 그들의 유명한 후손인 **모세**의 시대까지도 자기 가족끼리 오랫동안 간직했으며, 그리하여 **모세**는, **멜기세덱** 시대의 활기 넘치는 전통을, 아버지 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도 다른 근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받았다.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이 받아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심지어 하늘과 땅에 관한, 즉 사람과 **하나님**과 천사에 관한 많은 현대 종교 관념도, 이런 **멜기세덱** 교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이 선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의 우주 **신격**, 하늘에 계신 **창조주**, 신성한 **아버지**에 대한 교리에 모든 것을 종속시켰다.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미가엘**이 나중에 출현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사람의 갈망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가르침에 비중을 뒀다.

멜기세덱은, 자기가 왔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의 어느 날에 육신을 입고 도래하겠지만, 그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그로 인해서, 후대의 많은 선생은, **예수**가 “영구히 **멜기세덱** 계층을 따르는” 제사장 또는 성직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제 **낙원 아들**이 중여되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세계적 추세의 일신교 무대를 설치했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아버지**라고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버지**가 바로, 개인의 신앙이라는 간단한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에 관해서 **멜기세덱**이 가르친 모든 것을 확증했다.

4. 살렘 종교

살렘의 경배 예식은 매우 단순했다. **멜기세덱** 교회의, 진흙으로 만든 명부{名簿}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신경을 암기하고 동의했다:

1.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하나님**, 만유의 유일한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를 믿는다.

93:3.4 (1016.6) To the rank and file of his followers he made no effort to present teaching beyond the fact of the rulership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 Gods of Urantia. But to some, Melchizedek taught advanced truth, embracing the conduct and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 while to his brilliant disciple Nordan the Kenite and his band of earnest students he taught the truths of the superuniverse and even of Havona.

93:3.5 (1016.7)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Katro, with whom Melchizedek lived for more than thirty years, knew many of these higher truths and long perpetuated them in their family, even to the days of their illustrious descendant Moses, who thus had a compelling tradition of the days of Melchizedek handed down to him on this, his father's side, as well as through other sources on his mother's side.

93:3.6 (1016.8) Melchizedek taught his followers all they had capacity to receive and assimilate. Even many modern religious ideas about heaven and earth, of man, God, and angels, are not far removed from these teachings of Melchizedek. But this great teacher subordinated everything to the doctrine of one God, a universe Deity, a heavenly Creator, a divine Father. Emphasis was placed upon this teaching for the purpose of appealing to man's adoration and of preparing the way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ichael as the Son of this same Universal Father.

93:3.7 (1017.1) Melchizedek taught that at some future time another Son of God would come in the flesh as he had come, but that he would be born of a woman; and that is why numerous later teachers held that Jesus was a priest, or minister,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93:3.8 (1017.2) And thus did Melchizedek prepare the way and set the monotheistic stage of world tendency for the bestowal of an actual Paradise Son of the one God, whom he so vividly portrayed as the Father of all, and whom he represented to Abraham as a God who would accept man on the simple terms of personal faith. And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confirmed all that Melchizedek had taught concerning the Paradise Father.

4. THE SALEM RELIGION

93:4.1 (1017.3) The ceremonies of the Salem worship were very simple. Every person who signed or marked the clay-tablet rolls of the Melchizedek church committed to memory, and subscribed to, the following belief:

93:4.2 (1017.4) 1. I believe in El Elyon, the Most High God, the only Universal Father and Creator of all things.

2. 나는 제물과 불에 태운 제물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지고자**와 맺은 **멜기세덱** 서약을 받아들인다.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할 것과, **지고자**와 이렇게 서약했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살렘** 집단의 신조 전부였다. 그러나 그런 짧고도 단순한 신앙 고백조차, 그 시대 사람에게 너무 앞선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아무 것도 바치지 않고--곧 신앙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에게 몰수당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진지하게 사제들에게 제물과 선물을 바쳤으므로, 구원, 즉 신성한 은혜가 **멜기세덱** 서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면서 믿었는데, 그것조차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멜기세덱이 공표했던 일곱 계명은, 고대의 **달라마시아** 최고 법률 계통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덴**에서 가르쳤던 일곱 가지 명령과도 매우 흡사했다. **살렘** 종교의 이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1.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자 창조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2.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오직 신앙만이 요구 조건임을 의심치 마라.
3. 거짓 증언 하지 마라.
4. 살인하지 마라.
5. 훔치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너희의 부모와 어른에게 무례하지 마라.

그 거주지{居留地} 안에서는 어떤 제물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립된 관습을 갑자기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으며, 따라서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치던 옛 방법 대신,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로 대체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제안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런 신중한 혁신조차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여러 부족은 모두, **살렘** 외곽 지역에 보조 중심지들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제물과 불태운 제물을 바쳤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들라오멜**을 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야만적 행위를 자행했는데; 그는 단지 전통적 제물을 바칠 때까지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추종자들,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교 풍습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이런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

93:4.3 (1017.5) 2. I accept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the Most High, which bestows the favor of God on my faith, not on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93:4.4 (1017.6) 3. I promise to obey the seven commandments of Melchizedek and to tell the good news of this covenant with the Most High to all men.

93:4.5 (1017.7) And that was the whole of the creed of the Salem colony. But even such a short and simple declaration of faith was altogether too much and too advanced for the men of those days. They simply could not grasp the idea of getting divine favor for nothing — by faith. They were too deeply confirmed in the belief that man was born under forfeit to the gods. Too long and too earnestly had they sacrificed and made gifts to the priests to be able to comprehend the good news that salvation, divine favor, was a free gift to all who would believe in the Melchizedek covenant. But Abraham did believe halfheartedly, and even that was “counted for righteousness.”

93:4.6 (1017.8) The seven commandments promulgated by Melchizedek were patterned along the lines of the ancient Dalamatian supreme law and very much resembled the seven commands taught in the first and second Edens. These commands of the Salem religion were:

- 93:4.7 (1017.9) 1. You shall not serve any God but the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 93:4.8 (1017.10) 2. You shall not doubt that faith is the only requirement for eternal salvation.
- 93:4.9 (1017.11) 3.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 93:4.10 (1017.12) 4. You shall not kill.
- 93:4.11 (1017.13) 5. You shall not steal.
- 93:4.12 (1018.1) 6.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 93:4.13 (1018.2) 7. You shall not show disrespect for your parents and elders.

93:4.14 (1018.3) While no sacrifices were permitted within the colony, Melchizedek well knew how difficult it is to suddenly uproot long-established customs and accordingly had wisely offered these people the substitute of a sacrament of bread and wine for the older sacrifice of flesh and blood. It is of recor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forth bread and wine.” But even this cautious innovation was not altogether successful; the various tribes all maintained auxiliary centers on the outskirts of Salem where they offered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Even Abraham resorted to this barbarous practice after his victory over Chedorlaomer; he simply did not feel quite at ease until he had offered a conventional sacrifice. And Melchizedek never did succeed in fully

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자신의 증여 사명 완수에 엄격하게 몰두했다. 그는 사회관행을 재구성하거나 세상의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보된 위생 관습이나 과학적 진리도 세상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은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계속 살려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아들**이 나중에 필사 존재로 증여되게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멜기세덱은 94년 동안 계시된 기본 진리를 **살렘**에서 가르쳤고, 이 시기 동안 **아브라함**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렘** 학교에 참여했다. 그가 마침내 전향해서 **살렘** 교훈을 받아들였고, **멜기세덱**의 가장 훌륭한 학생이자 주요 지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됐다.

5. 아브라함을 선택함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한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여러 신격을 믿는 만연된 신앙과는 현저히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계속 살리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마키벤타의 활동 장소로 **팔레스틴**이 선택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도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멜기세덱**이 육신화 됐을 당시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살렘**의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똑같이 잘 된 가족이 여럿 있었다. 홍색인, 황색인, 그리고 서부와 북부에 있는 **안드족속**의 후손 가운데는, 똑같은 자질을 지닌 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장소들 중에서 어떤 곳도, **지중해** 동부 해안만큼, 나중에 **미가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에 더 알맞은 장소는 없었다. **팔레스틴**에서 **멜기세덱**이 선교한 것과, 차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미가엘**이 출현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지리적 요소 때문에, 즉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무역, 교통, 및 문명의 면을 고려할 때 **팔레스틴**이 중심 위치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됐다.

멜기세덱 관재인들은 한동안 **아브라함**의 조상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서 지성적이고 독창적이며 현명하고 성실한 특징을 갖춘 인물이 출현할 것으로 자신 있게 기대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켰다. **마키벤타**가, **이집트**, **중국**, **인도**, 또는 북쪽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서 출현하기보다 **살렘**에서 출현했던 상당한 이유

eradicating this proclivity to sacrifice from the religious practices of his followers, even of Abraham.

93:4.15 (1018.4) Like Jesus, Melchizedek attended strictly to the fulfillment of the mission of his bestowal. He did not attempt to reform the mores, to change the habits of the world, nor to promulgate even advanced sanitary practices or scientific truths. He came to achieve two tasks: to keep alive on earth the truth of the one God and to prepare the way for the subsequent mortal bestowal of a Paradise Son of that Universal Father.

93:4.16 (1018.5) Melchizedek taught elementary revealed truth at Salem for ninety-four years, and during this time Abraham attended the Salem school three different times. He finally became a convert to the Salem teachings, becoming one of Melchizedek's most brilliant pupils and chief supporters.

5. THE SELECTION OF ABRAHAM

93:5.1 (1018.6) Although it may be an error to speak of “chosen people,” it is not a mistake to refer to Abraham as a chosen individual. Melchizedek did lay upon Abraham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alive the truth of one God 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ailing belief in plural deities.

93:5.2 (1018.7) The choice of Palestine as the site for Machiventa's activities was in part predicated upon the desire to establish contact with some human family embodying the potentials of leadership. At the time of the incarnation of Melchizedek there were many families on earth just as well prepared to receive the doctrine of Salem as was that of Abraham. There were equally endowed families among the red men, the yellow men, and the descendants of the Andites to the west and north. But, again, none of these localities were so favorably situated for Michael's subsequent appearance on earth as was the eastern shore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Melchizedek mission in Palestine and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ichael among the Hebrew people were in no small measure determined by geography, by the fact that Palestine was centrally located with reference to the then existent trade, travel, and civilization of the world.

93:5.3 (1018.8) For some time the Melchizedek receivers had been observing the ancestors of Abraham, and they confidently expected offspring in a certain generation who would be characterized by intelligence, initiative, sagacity, and sincerity. The children of Terah, the father of Abraham, in every way met these expectations. It was this possibility of contact with these versatile

는, **데라**의 이런 다재다능한 자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데라와 그의 온 가족은, **갈대아**에 전파돼 있던 **살렘** 종교에 마지못해서 전향한 상태였으며; **우르**에서 **살렘** 교리를 선포하는 **페니키아인** 선생 **오비드**의 설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알았다. 그들은 곧장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하란**에 머물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 도착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갖고 나온 가신(家神)을 모두 기꺼이 파괴했으며; **살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을 포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지 몇 주 지난 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나홀**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기 위해서 학생 가운데 하나인 **헷족속 자람**을 보냈다: “당신들이 **살렘**으로 온다면,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들 두 형제에게서 태어나는 계몽된 자손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복 받게 될 것이요.” 이때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뒤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지닌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립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살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그 도시 근처의 가파른 곳에 요새를 선정했고, 거기서 북쪽 침입자들의 잦은 기습에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었다. 이때 **헷족속**, **앗수르인**, **블레셋족속**, 및 기타 여러 집단이 **팔레스틴** 중부와 남부에 있는 부족들을 계속 침략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언덕에 있는 본거지로부터 **살렘**으로 자주 여행했다.

그들이 **살렘** 근처에 자리 잡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틴**에 가뭄이 심했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일** 강 유역으로 여행했다. **이집트**에서 이 짧은 여행 동안에, **아브라함**은 먼 친척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았음을 알게 됐고, 이 왕을 위해 지휘관으로서 두 차례의 군사 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가 **나일** 강에 머물던 후반기 동안, 그와 아내 **사라**는 궁전에서 살았으며,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자신의 군사 출전에서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서 한 몫을 받았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사는 명예를 버리고, **마키벤타**가 후원하는 더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데는, **아브라함**의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집트**에서도 존경 받고 있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돌아가서 **살렘** 운동에 대해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권했다.

children of Terah that had considerable to do with the appearance of Machiventa at Salem, rather than in Egypt, China, India, or among the northern tribes.

93:5.4 (1019.1) Terah and his whole family were halfhearted converts to the Salem religion, which had been preached in Chaldea; they learned of Melchizedek through the preaching of Ovid, a Phoenician teacher who proclaimed the Salem doctrines in Ur. They left Ur intending to go directly through to Salem, but Nahor, Abraham's brother, not having seen Melchizedek, was lukewarm and persuaded them to tarry at Haran. And it was a long time after they arrived in Palestine before they were willing to destroy *all* of the household gods they had brought with them; they were slow to give up the many gods of Mesopotamia for the one God of Salem.

93:5.5 (1019.2) A few weeks after the death of Abraham's father, Terah, Melchizedek sent one of his students, Jaram the Hittite, to extend this invitation to both Abraham and Nahor: "Come to Salem, where you shall hear our teachings of the truth of the eternal Creator, and in the enlightened offspring of you two brothers shall all the world be blessed." Now Nahor had not wholly accepted the Melchizedek gospel; he remained behind and built up a strong city-state which bore his name; but Lot, Abraham's nephew, decided to go with his uncle to Salem.

93:5.6 (1019.3) Upon arriving at Salem, Abraham and Lot chose a hilly fastness near the city where they c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many surprise attacks of northern raiders. At this time the Hittites, Assyrians, Philistines, and other groups were constantly raiding the tribes of central and southern Palestine. From their stronghold in the hills Abraham and Lot made frequent pilgrimages to Salem.

93:5.7 (1019.4) Not long after they had established themselves near Salem, Abraham and Lot journeyed to the valley of the Nile to obtain food supplies as there was then a drought in Palestine. During his brief sojourn in Egypt Abraham found a distant relative on the Egyptian throne, and he served as the commander of two very successful military expeditions for this king. During the latter part of his sojourn on the Nile he and his wife, Sarah, lived at court, and when leaving Egypt, he was given a share of the spoils of his military campaigns.

93:5.8 (1019.5) It required great determination for Abraham to forgo the honors of the Egyptian court and return to the more spiritual work sponsored by Machiventa. But Melchizedek was revered even in Egypt, and when the full story was laid before Pharaoh, he strongly urged Abraham to return to the execution of his vows to the cause of Salem.

아브라함은 왕이 되는 야망을 가졌으며, **이집트**로부터 돌아오는 도중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의 통치 하에 두려는 계획을 **롯**에게 이야기했다. **롯**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고, 상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버렸다. **롯**은 군인이 되기를 싫어했고, 목자{牧者} 생활도 좋아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군사 계획을 완성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곧 **살렘** 지역에서 집권자로 알려지게 됐고, 근처에 있는 일곱 부족으로 자신의 지휘권 아래 동맹국을 형성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류하기는 정말로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나가서 인근에 있는 부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서, 그들에게 **살렘**의 진리를 더 빨리 알리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멜기세덱은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군대들이 오가며 이동할 때에도 전혀 공격 받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실행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렘**을 방어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전적으로 원했지만, 야심적으로 정복하려는 제자의 계획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리하여 우호적이었던 친구 관계는 단절됐고, **아브라함**은 군사 중심지를 수립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건너갔다.

아브라함은 저명한 **멜기세덱**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규모 왕들보다 매우 큰 이점을 가졌으며; 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을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을 알았고, 이웃을 공격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런 구실을 찾게 된 것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재산을 이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가 주재님께 탈취한 때였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 일곱 동맹 부족의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이 적을 추격했다. 그의 호위병 318명이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때 공격에 가담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지만, 옛 제자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야 겨우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적을 **살렘**의 **하나님**이 무찌르고 승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으며, 자신의 탈취물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의 재정으로 제공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나머지 90퍼센트를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중심지로 옮겨갔다.

실딴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열한 부족으로 구성된 두 번째 동맹국의 지도자가 됐으며,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부족도 반드시 똑같이 하도록 시켰다. **소돔** 왕과 맺은 그의 외교적 거래는, 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두려움과 더불어, **소**

93:5.9 (1019.6) Abraham had kingly ambitions, and on the way back from Egypt he laid before Lot his plan to subdue all Canaan and bring its people under the rule of Salem. Lot was more bent on business; so, after a later disagreement, he went to Sodom to engage in trade and animal husbandry. Lot liked neither a military nor a herder's life.

93:5.10 (1019.7) Upon returning with his family to Salem, Abraham began to mature his military projects. He was soon recognized as the civil ruler of the Salem territory and had confederated under his leadership seven near-by tribes. Indeed, it was with great difficulty that Melchizedek restrained Abraham, who was fired with a zeal to go forth and round up the neighboring tribes with the sword that they might thus more quickly be brought to a knowledge of the Salem truths.

93:5.11 (1019.8) Melchizedek maintained peaceful relations with all the surrounding tribes; he was not militaristic and was never attacked by any of the armies as they moved back and forth. He was entirely willing that Abraham should formulate a defensive policy for Salem such as was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but he would not approve of his pupil's ambitious schemes for conquest; so there occurred a friendly severance of relationship, Abraham going over to Hebron to establish his military capital.

93:5.12 (1020.1) Abraham, because of his close connection with the illustrious Melchizedek, possessed great advantage over the surrounding petty kings; they all revered Melchizedek and unduly feared Abraham. Abraham knew of this fear and only awaited an opportune occasion to attack his neighbors, and this excuse came when some of these rulers presumed to raid the property of his nephew Lot, who dwelt in Sodom. Upon hearing of this, Abraham, at the head of his seven confederated tribes, moved on the enemy. His own bodyguard of 318 officered the army, numbering more than 4,000, which struck at this time.

93:5.13 (1020.2) When Melchizedek heard of Abraham's declaration of war, he went forth to dissuade him but only caught up with his former disciple as he returned victorious from the battle. Abraham insisted that the God of Salem had given him victory over his enemies and persisted in giving a tenth of his spoils to the Salem treasury. The other ninety per cent he removed to his capital at Hebron.

93:5.14 (1020.3) After this battle of Siddim, Abraham became leader of a second confederation of eleven tribes and not only paid tithes to Melchizedek but saw to it that all others in that vicinity did the same. His diplomatic dealings with the king of Sodom, together with the fear in which

돔 왕 및 다른 왕들이 **헤브론** 군사 동맹에 가담하도록 만들었으며;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정말로 순조롭게 이뤄갔다.

he was so generally held, resulted in the king of Sodom and others joining the Hebron military confederation; Abraham was really well on the way to establishing a powerful state in Palestine.

6.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꿈을 꾀다. 그의 결심을 유일하게 약화시킨 것은, **멜기세덱**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막 실행하려 했을 때, 예상되는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멜기세덱**과 협의를 다시 주선했으며; 이 회견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살렘** 제사장은, 물질적으로 정복해서 현세에 통치하는 그의 책략을 포기하고, 하늘 나라의 영적 개념을 지지하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했다.

멜기세덱은, **아모리족**속 동맹과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달되지 못한 씨족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풍습으로 인해 자멸{自滅}할 것이 분명하므로,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너무도 약하게 돼서, 그동안 엄청난 게 증가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을 쉽게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 계약을 맺었다: “이제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됐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 머문 후에,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모든 것을 하기로 동의하시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협정을 의미하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침을 따르기로 동의할 뿐이다. 그때까지는 구원이, 오직 행위--곧 제물과 헌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 이제는 **멜기세덱**이,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획득한다는 기쁜 소식을 **유란시아**에 다시 전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 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으며; **셈족**속 부족민은 그 후에, 옛 제물 방식과 피를 뿌림으로써 죄 값을 갚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더 좋아했다.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멜기세덱**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맺은 계약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며,

6.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93:6.1 (1020.4) Abraham envisaged the conquest of all Canaan. His determination was only weakened by the fact that Melchizedek would not sanction the undertaking. But Abraham had about decided to embark upon the enterprise when the thought that he had no son to succeed him as ruler of this proposed kingdom began to worry him. He arranged another conference with Melchizedek; and it was in the course of this interview that the priest of Salem, the visible Son of God, persuaded Abraham to abandon his scheme of material conquest and temporal rule in favor of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93:6.2 (1020.5) Melchizedek explained to Abraham the futility of contending with the Amorite confederation but made it equally clear that these backward clans were certainly committing suicide by their foolish practices so that in a few generations they would be so weakened that the descendants of Abraham, meanwhile greatly increased, could easily overcome them.

93:6.3 (1020.6) And Melchizedek made a formal covenant with Abraham at Salem. Said he to Abraham: “Look now up to the heavens and number the stars if you are able; so numerous shall your seed be.” And Abraham believed Melchizedek, “and it was 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And then Melchizedek told Abraham the story of the future occupation of Canaan by his offspring after their sojourn in Egypt.

93:6.4 (1020.7) This covenant of Melchizedek with Abraham represents the great Urantian agreement between divinity and humanity whereby God agrees to do *everything*; man only agrees to *believe* God's promises and follow his instructions. Heretofore it had been believed that salvation could be secured only by works — sacrifices and offerings; now, Melchizedek again brought to Urantia the good news that salvation, favor with God, is to be had by *faith*. But this gospel of simple faith in God was too advanced; the Semitic tribesmen subsequently preferred to go back to the older sacrifices and atonement for sin by the shedding of blood.

93:6.5 (1021.1) It was not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venant that Isaac, the son of Abraham, was born in accordance with the promise of Melchizedek. After the birth of Isaac, Abraham

그것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살렘**으로 건너갔다.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수락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살렘 종교를 믿는 자 대부분이 이미 할례를 행했지만, **멜기세덱**은 결코 할례를 의무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때 **아브라함**은 늘 할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므로, 이 경우에 **살렘** 계약을 비준한다는 표시로 이 제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행사를 엄숙히 축하하기로 결심했다.

멜기세덱의 더 큰 계획을 위해, 그의 개인 야망을 실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이 일에 뒤따라서, 세 명의 천상(天上)의 존재가 **마므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연적 멸망과 관련시켜서 나중에 합성된 이야기가 꾸며졌음에도, 이것은 실제 출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전설은, 도덕과 윤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보여준다.

엄숙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화해가 완성됐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지의 민간 및 군사 지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됐는데, 전성기에는 **멜기세덱** 형제회 명부에 실린 정기 십일조 헌금자가 10만 명 넘게 유지됐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성전을 크게 개량했으며, 모든 학교에 새로운 천막을 제공했다. 그는 십일조 체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개선된 방법을 많이 제정했고, 그 외에도 선교사의 포교활동 분야를 더 잘 운용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살렘**의 낙농업 기획과 목축업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도 많은 일을 했다. **아브라함**은 기민하면서 유능한 사업가, 즉 당대의 큰 부자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빈틈없이 성실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다.

took a very solemn attitude toward his covenant with Melchizedek, going over to Salem to have it stated in writing. It was at this public and formal acceptance of the covenant that he changed his name from Abram to Abraham.

93:6.6 (1021.2) Most of the Salem believers had practiced circumcision, though it had never been made obligatory by Melchizedek. Now Abraham had always so opposed circumcision that on this occasion he decided to solemnize the event by formally accepting this rite in token of the ratification of the Salem covenant.

93:6.7 (1021.3) It was following this real and public surrender of his personal ambitions in behalf of the larger plans of Melchizedek that the three celestial beings appeared to him on the plains of Mamre. This was an appearance of fact, notwithstanding its association with the subsequently fabricated narratives relating to the natural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nd these legends of the happenings of those days indicate how retarded were the morals and ethics of even so recent a time.

93:6.8 (1021.4) Upon the consummation of the solemn covenant, the reconciliation between Abraham and Melchizedek was complete. Abraham again assumed the civil and military leadership of the Salem colony, which at its height carried over one hundred thousand regular tithe payers on the rolls of the Melchizedek brotherhood. Abraham greatly improved the Salem temple and provided new tents for the entire school. He not only extended the tithing system but also instituted many improved methods of conducting the business of the school, beside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better handling of the department of missionary propaganda. He also did much to effect improvement of the herd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alem dairying projects. Abraham was a shrewd and efficient business man, a wealthy man for his day; he was not overly pious, but he was thoroughly sincere, and he did believe in Machiventa Melchizedek.

7. 멜기세덱의 선교사들

멜기세덱은 여러 해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를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에게 스며들었고, 특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가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키벤타** 복음을 전했다.

반 호수의 해변에 밀집돼 있던 **아담산** 후손은, **살렘** 종파의 **헛족속** 선생들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한때 **안드족속**의 중심지였던 여기서, 여러 선생이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으로 파송됐

7.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93:7.1 (1021.5) Melchizedek continued for some years to instruct his students and to train the Salem missionaries, who penetrated to all the surrounding tribes, especially to Egypt, Mesopotamia, and Asia Minor. And as the decades passed, these teachers journeyed farther and farther from Salem, carrying with them Machiventa's gospel of belief and faith in God.

93:7.2 (1021.6) The descendants of Adamson, clustered about the shores of the lake of Van, were willing listeners to the Hittite teachers of the Salem cult. From this onetime Andite center, teachers

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고, 심지어 **영국 제도**{諸島}에도 이르렀다. 어떤 집단은 **페로 제도**를 경유해서 **아이슬란드**의 **안돈족**에게로 갔고, 또 어떤 집단은 **중국**을 건너서 동쪽 섬에 있는 **일본인**에게로 갔다. **동반구**에 있는 부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살렘**, **메소포타미아**, 및 **반 호수**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진했던 남녀의 삶과 체험은, 인간 종족의 연대기{年代記}에서 영웅적인 부분을 연출했다.

그러나 그 과제는 너무 힘들었고 부족들이 너무 뒤떨어졌으므로, 그 결과는 미미하고 명확치 않았다. 세대가 바뀌면서 **살렘** 복음의 거점{據點}이 여기저기 형성됐지만, **팔레스틴**을 제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전체 부족 또는 종족의 지속적인 충심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예수**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살렘** 선교사의 교훈은, 더 오래되고 더 보편적인 미신과 신념에 대체로 매몰됐다. 본래의 **멜기세덱** 복음은, **대모**{大母} 숭배, **태양** 숭배, 및 기타 옛 종파를 믿는 신앙 속으로 거의 완전하게 흡수됐다.

오늘날 인쇄 기술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이런 초기 시대 동안 진리를 존속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뀌면서 새로운 교리를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교리가 옛 종교의 가르침과 마술 풍습의 덩어리 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경향이 항상 있었다. 새로운 계시는 언제나, 더 오래된 진화하는 믿음에 오염된다.

8. 멜기세덱이 떠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에, **멜기세덱**은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멜기세덱**이 육신 속에서의 체류를 종결 짓기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이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까운 동역자들까지도, 그를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간주하고 초인적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가 그렇긴 했지만; 그들이 그를 부당하게 그리고 매우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숭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 외에도 **멜기세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추종자들의 정신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세상에서의 활동 무대를 떠나고자 했다. 따라서 **마키벤타**는 어느 날 밤 인간 동무들에게 취침 인사를 하면서 **살렘**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물러갔으며,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는, 그가 거기에 없었는데, 동료들이 그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were dispatched to the remote regions of both Europe and Asia.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all Europe, even to the British Isles. One group went by way of the Faroes to the Andonites of Iceland, while another traversed China and reached the Japanese of the eastern islands.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the men and women who ventured forth from Salem, Mesopotamia, and Lake Van to enlighten the tribes of the Eastern Hemisphere present a heroic chapter in the annals of the human race.

93:7.3 (1022.1) But the task was so great and the tribes were so backward that the results were vague and indefinit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 Salem gospel found lodgment here and there, but except in Palestine, never was the idea of one God able to claim the continued allegiance of a whole tribe or race. Long before the coming of Jesus the teachings of the early Salem missionaries had become generally submerged in the older and more universal superstitions and beliefs. The original Melchizedek gospel had been almost wholly absorbed in the beliefs in the Great Mother, the Sun, and other ancient cults.

93:7.4 (1022.2) You who today enjoy the advantages of the art of printing little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as to perpetuate truth during these earlier times; how easy it was to lose sight of a new doctrin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re was always a tendency for the new doctrine to become absorbed into the older body of religious teaching and magical practice. A new revelation is always contaminated by the older evolutionary beliefs.

8. DEPARTURE OF MELCHIZEDEK

93:8.1 (1022.3) It was shortly after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that Machiventa decided to end his emergency bestowal on Urantia. Melchizedek's decision to terminate his sojourn in the flesh was influenced by numerous conditions, chief of which was the growing tendency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even of his immediate associates, to regard him as a demigod, to look upon him as a supernatural being, which indeed he was; but they were beginning to reverence him unduly and with a highly superstitious fear. In addition to these reasons, Melchizedek wanted to leave the scene of his earthly activities a sufficient length of time before Abraham's death to insure that the truth of the one and only God would become strongly established in the minds of his followers. Accordingly Machiventa retired one night to his tent at Salem, having said good night to his human companions, and when they went to call him in the morning, he was not there, for his fellows had taken him.

9. 멜기세덱이 떠난 후

멜기세덱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비록 자신이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추종자들에게 이미 완전하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경이로운 지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시대의 전통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가득했고, 결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포기했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했으며; 이제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를 잃게 되자, **살렘**을 떠났고, 자기 기업{企業}이 있는 **그랄** 근처에서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직후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됐다. 그는 **그랄**에 도착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챘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총명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 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했던 그 지도자에게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을 줬으며; 그는 자신의 여생에 누군가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몰래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의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용감한 남자가 정말로 겁쟁이처럼 보였던 사건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 자기 사명을 행하는 데 오래 방해받지는 않았다. 그는 곧 **블레셋족속**과 **아비멜렉** 민족 중에서 개종자가 생겨나게 했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많은 미신 관습, 특히 첫 태생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 오염됐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서 다시 큰 지도자가 됐다. 그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존경 받았고, 모든 왕으로부터 존중 받았다. 그는 모든 이웃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 무대였고, **멜기세덱**과 연합해서 활동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아들 **이삭**의 아내로 자신의 원래 민족 중에서 한 여자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만한 하인을 보낸 것이었다.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 학교에서 **멜기세덱**에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죽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

9. AFTER MELCHIZEDEK'S DEPARTURE

93:9.1 (1022.4) It was a great trial for Abraham when Melchizedek so suddenly disappeared. Although he had fully warned his followers that he must sometime go as he had come, they were not reconciled to the loss of their wonderful leader. The great organization built up at Salem nearly disappeared, though the traditions of these days were what Moses built upon when he led the Hebrew slaves out of Egypt.

93:9.2 (1022.5) The loss of Melchizedek produced a sadness in the heart of Abraham that he never fully overcame. Hebron he had abandoned when he gave up the ambition of building a material kingdom; and now, upon the loss of his associate in the building of the spiritual kingdom, he departed from Salem, going south to live near his interests at Gerar.

93:9.3 (1022.6) Abraham became fearful and timid immediately after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He withheld his identity upon arrival at Gerar, so that Abimelech appropriated his wife. (Shortly after his marriage to Sarah, Abraham one night had overheard a plot to murder him in order to get his brilliant wife. This dread became a terror to the otherwise brave and daring leader; all his life he feared that someone would kill him secretly in order to get Sarah. And this explains why, on three separate occasions, this brave man exhibited real cowardice.)

93:9.4 (1023.1) But Abraham was not long to be deterred in his mission as the successor of Melchizedek. Soon he made converts among the Philistines and of Abimelech's people, made a treaty with them, and, in turn, became contaminated with many of their superstitions, particularly with their practice of sacrificing first-born sons. Thus did Abraham again become a great leader in Palestine. He was held in reverence by all groups and honored by all kings. He was the spiritual leader of all the surrounding tribes, and his influence continued for some time after his death. During the closing years of his life he once more returned to Hebron, the scene of his earlier activities and the place where he had worked in association with Melchizedek. Abraham's last act was to send trusty servants to the city of his brother, Nahor, on the border of Mesopotamia, to secure a woman of his own people as a wife for his son Isaac. It had long been the custom of Abraham's people to marry their cousins. And Abraham died confident in that faith in God which he had learned from Melchizedek in the vanished schools of Salem.

93:9.5 (1023.2) It was hard for the next generation to comprehend the story of Melchizedek; within five

은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게 됐다. **이삭**은 아버지의 교훈을 아주 잘 유지했고, **살렘** 집단의 복음을 잘 보호했지만, **아곱**이 이 전승의 의미심장함을 납득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몽상가 취급을 받았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의 군사 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 교훈을 그토록 굳게 믿었으므로, 민간 경영자로 일하기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분하고 충만했지만, 이 시절에 관한 기록은, 후대의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으며, 그러나 적어도 **바벨론**에서 **구약 성경** 기록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 진행사항을 이해하는 자가 많았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묘사하는 기록이,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협의였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비슷한말로 여겼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천사”와 매우 여러 번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삭, **아곱**, 및 **요셉**에 대한 **히브리인** 전승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제사장들이 이 기록을 편집할 때,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변경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으며, **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本妻} **사라**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어렸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나이는 나중에 고의로 수정됐다.

유대인의 민족 자부심은 **바벨론**에 포로가 됨으로써 크게 하락했다. 민족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정반대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자만심으로 돌아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보다 우위에 서도록 자기 민족을 고양시킬 생각으로, 자신들의 전승을 왜곡시키고 오용했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전체 기록을 세심하게 편집했고,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서기관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파기했고, 자신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가 반영되는, **실딤** 전투 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hundred years many regarded the whole narrative as a myth. Isaac held fairly well to the teachings of his father and nourished the gospel of the Salem colony, but it was harder for Jacob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se traditions. Joseph was a firm believer in Melchizedek and was, largely because of this, regarded by his brothers as a dreamer. Joseph's honor in Egypt was chiefly due to the memory of his great-grandfather Abraham. Joseph was offered military command of the Egyptian armies, but being such a firm believer in the traditions of Melchizedek and the later teachings of Abraham and Isaac, he elected to serve as a civil administrator, believing that he could thus better labor for the advance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93:9.6 (1023.3) The teaching of Melchizedek was full and replete, but the records of these days seemed impossible and fantastic to the later Hebrew priests, although many had some understanding of these transactions, at least up to the times of the en masse editing of the Old Testament records in Babylon.

93:9.7 (1023.4) What the Old Testament records describe as conversations between Abraham and God were in reality conferences between Abraham and Melchizedek. Later scribes regarded the term Melchizedek as synonymous with God. The record of so many contacts of Abraham and Sarah with “the angel of the Lord” refers to their numerous visits with Melchizedek.

93:9.8 (1023.5) The Hebrew narratives of Isaac, Jacob, and Joseph are far more reliable than those about Abraham, although they also contain many diversions from the facts, alterations made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at the time of the compilation of these records by the Hebrew priests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Keturah was not a wife of Abraham; like Hagar, she was merely a concubine. All of Abraham's property went to Isaac, the son of Sarah, the status wife. Abraham was not so old as the records indicate, and his wife was much younger. These ages were deliberately altere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subsequent alleged miraculous birth of Isaac.

93:9.9 (1023.6) The national ego of the Jews was tremendously depressed by the Babylonian captivity. In their reaction against national inferiority they swung to the other extreme of national and racial egotism, in which they distorted and perverted their traditions with the view of exalting themselves above all races as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hence they carefully edited all their records for the purpose of raising Abraham and their other national leaders high up above all other persons, not excepting Melchizedek himself. The Hebrew scribes therefore destroyed every record of these momentous times which they could find, preserving only the narrative of the meeting of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뒀다.

그리하여 그들은 **멜기세덱**을 잊게 되면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사명에 관한 이 비상대책 **아들**의 가르침 또한 잊게 됐으며; 이 사명의 본질에 대한 망각이 너무 전체적이고 완전했으므로, **마키벤타**가 예언했던 대로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들의 자손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수 없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記者)들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의 사명을 이해했는데, 그는: “**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으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인생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진 까닭에,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예표로 삼았으며,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역자”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교가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을 세계에 증여할 때 근무하던 “12명의 **멜기세덱** 관재인의 서열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다.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마키벤타가 육신화 됐던 여러 해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은 열한 명으로 활동했다. **마키벤타**가 비상대책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실을 열한 명의 동역자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그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원래 **멜기세덱** 상태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법을 즉시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살렘**에서 사라진 후 3일째 되던 날, **유란시아**를 양도받은 열한 명의 동료 가운데서 나타났고, **사타니아**의 606_번에 대한 행성 관재인 가운데 하나로써 단절됐던 자신의 생애를 재개했다.

마키벤타는, 자신이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형식 없이, 육체를 갖는 피조물로서의 증여를 종결지었다. 그의 출현뿐 아니라 사라짐도 아무런 유별난 성명서 또는 과시함 없이 이뤄졌으며; **유란시아**에서 그의 출현을 현저하게 나타낼만한, 부활 출석점호나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도 없었으며; 그의 출현은 비상대책 증여였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자신을 **아버지 멜기세덱**이 정식으로 해체시킬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네바돈** 최고 행정관인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허락 했다고 통보받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

Abraham and Melchizedek after the battle of Siddim, which they deemed reflected great honor upon Abraham.

93:9.10 (1024.1) And thus, in losing sight of Melchizedek, they also lost sight of the teaching of this emergency Son regarding the spiritual mission of the promised bestowal Son; lost sight of the nature of this mission so fully and completely that very few of their progeny were able or willing to recognize and receive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and in the flesh as Machiventa had foretold.

93:9.11 (1024.2) But one of the writers of the Book of Hebrews understood the mission of Melchizedek, for it is written: “This Melchizedek, priest of the Most High, was also king of peace;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pedigree,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but made like a Son of God, he abides a priest continually.” This writer designated Melchizedek as a type of the later bestowal of Michael, affirming that Jesus was “a minister forever on the order of Melchizedek.” While this comparison was not altogether fortunate, it was literally true that Christ did receive provisional title to Urantia “upon the orders of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on duty at the time of his world bestowal.

10. PRESENT STATUS OF MACHIVENTA MELCHIZEDEK

93:10.1 (1024.3) During the years of Machiventa's incarnation the Urantia Melchizedek receivers functioned as eleven. When Machiventa considered that his mission as an emergency Son was finished, he signalized this fact to his eleven associates, and they immediately made ready the technique whereby he was to be released from the flesh and safely restored to his original Melchizedek status. And on the third day after his disappearance from Salem he appeared among his eleven fellows of the Urantia assignment and resumed his interrupted career as one of the planetary receivers of 606 of Satania.

93:10.2 (1024.4) Machiventa terminated his bestowal as a creature of flesh and blood just as suddenly and unceremoniously as he had begun it. Neither his appearance nor departure were accompanied by any unusual announcement or demonstration; neither resurrection roll call nor ending of planetary dispensation marked his appearance on Urantia; his was an emergency bestowal. But Machiventa did not end his sojourn in the flesh of human beings until he had been duly released by the Father Melchizedek and had been informed that his emergency bestowal had received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 Nebadon, Gabriel of Salvington.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기가 육신 속에 있었을 때 가르친 교훈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의 직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계속 쏟았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켄족속**과 서로 결혼 하면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살렘** 교훈의 어떤 분명한 개념을 오랫동안 계속 보존했던 유일한 혈통이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이어지는 열아홉 세기 동안 내내, 여러 선지자 및 예언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일했고, 그렇게 해서 **미가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까지, **살렘**의 진리를 계속 살리려고 애썼다.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계속 행성 관재인으로서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는 2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예루셈**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배속됐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루셈**에서 **창조주 아들**의 개인 대사 자격으로 승격됐는데,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남아 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아들신분 계층의 임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토록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사역자가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대한 **마키벤타**의 증여가 비상대책이었듯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단체는, 그들 숫자 가운데 하나를 영구히 손실된 상태로 지속될지도 모른다.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의 판결문과,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에게서 나중에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증여됐던 이 **멜기세덱**이, 타락한 **행성 왕자 칼리개스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한다. 이런 기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직접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위된 **행성 왕자**의 직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직함을 실제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신해서, **대리 행성 왕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본다면, 앞에 말한 추측이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다.

유란시아에서 승리함으로 **미가엘**이 어떻게 **칼리개스차**와 **아담**, 이 둘의 계승자가 됐는지; 그가 어떻게 행성에서 **평화의 왕자**가 되고 두 번째 **아담**이 됐는지,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이 수여될 것을 기대한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대리 물질 아들**로도 임명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전례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언젠가 **아담**과 **이브**가 행

93:10.3 (1024.5) Machiventa Melchizedek continued to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affairs of the descendants of those men who had believed in his teachings when he was in the flesh. But the progeny of Abraham through Isaac as intermarried with the Kenites were the only line which long continued to nourish any clear concept of the Salem teachings.

93:10.4 (1024.6) This same Melchizedek continued to collaborate throughout the nineteen succeeding centuries with the many prophets and seers, thus endeavoring to keep alive the truths of Salem until the fullness of the time for Michael's appearance on earth.

93:10.5 (1025.1) Machiventa continued as a planetary receiver up to the times of the triumph of Michael on Urantia. Subsequently, he was attached to the Urantia service on Jerusem as one of the four and twenty directors, only just recently having been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ersonal ambassador on Jerusem of the Creator Son, bearing the titl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It is our belief that, as long as Urantia remains an inhabited planet, Machiventa Melchizedek will not be fully returned to the duties of his order of sonship but will remain, speaking in the terms of time, forever a planetary minister representing Christ Michael.

93:10.6 (1025.2) As his was an emergency bestowal on Urantia, it does not appear from the records what Machiventa's future may be. It may develop that the Melchizedek corps of Nebadon have sustained the permanent loss of one of their number. Recent rulings handed down from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later confirm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strongly suggest that this bestowal Melchizedek is destined to take the place of the fallen Planetary Prince, Caligastia. If our conjectures in this respect are correct,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Machiventa Melchizedek may again appear in person on Urantia and in some modified manner resume the role of the dethroned Planetary Prince, or else appear on earth to function as vicegerent Planetary Prince representing Christ Michael, who now actually holds the title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hile it is far from clear to us as to what Machiventa's destiny may be, nevertheless, events which have so recently taken place strongly suggest that the foregoing conjectures are probably not far from the truth.

93:10.7 (1025.3) We well understand how, by his triumph on Urantia, Michael became the successor of both Caligastia and Adam; how he became the planetary Prince of Peace and the second Adam. And now we behold the conferring upon this Melchizedek of the titl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he also be constituted Vicegerent Material Son of Urantia? Or is there a possibility that an unexpected and

성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후손이, **미가엘**의 대행자로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아담**의 대리인 직함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집정관 아들** 및 **삼위일체처럼된 교사 아들** 둘 다 장차 출현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관련되는 이런 모든 추측은, **창조주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과 함께, **유란시아**를 앞날이 확실치 않은 행성으로 만들고, 온 **네바돈** 우주에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 끄는 구체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까이 도달하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루시퍼** 반역과 **캘리개스타** 탈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집정관 아들** 또는 심지어 **삼위일체처럼된 교사 아들**들 뿐만 아니라, **마키벤타**, **아담**과 **이브**, 및 **그리스도 미가엘**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

24조연자, 즉 **유란시아** 지도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에 **마키벤타**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진보하고 상승하는 우주 짜임새를 거쳐서, 심지어 **낙원 완결성취 단체**까지도, 그가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따라가게 돼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우리 계층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오고 있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상태에 정착될 때, 이처럼 **낙원**으로 가는 모험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구의 동료들을 따라가게 돼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약 1,000년 미만 전에, 한때 **살렘**의 지혜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1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나타나서, 행성에 거주하는 총독으로서 활동했으며; 행성 직무를 지도하는 현 체계가 계속된다면, 약 천 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동일한 자격으로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됐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 가운데 하나이며, 너희의 불규칙적이고 유별난 세상이 앞으로 겪을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을지도 모를 인격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unprecedented event is to take place, the sometime return to the planet of Adam and Eve or certain of their progeny as representatives of Michael with the titles vicegerents of the second Adam of Urantia?

93:10.8 (1025.4) And all these speculations associated with the certainty of future appearances of both Magisterial and Trinity Teacher Sons, in conjunction with the explicit promise of the Creator Son to return sometime, make Urantia a planet of future uncertainty and render it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intriguing spheres in all the universe of Nebadon.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in some future age when Urantia is approaching the era of light and life, after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aligastia secession have been finally adjudicated, we may witness the presence on Urantia, simultaneously, of Machiventa, Adam, Eve, and Christ Michael, as well as either a Magisterial Son or even Trinity Teacher Sons.

93:10.9 (1025.5) It has long been the opinion of our order that Machiventa's presence on the Jerusem corps of Urantia directors,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is sufficient evidence to warrant the belief that he is destined to follow the mortals of Urantia on through the universe scheme of progression and ascension even to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We know that Adam and Eve are thus destined to accompany their earth fellows on the Paradise adventure when Urantia has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93:10.10 (1025.6) Less than a thousand years ago this same Machiventa Melchizedek, the onetime sage of Salem, was invisibly present on Urantia for a period of one hundred years, acting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of the planet; and if the present system of directing planetary affairs should continue, he will be due to return in the same capacity in a little over one thousand years.

93:10.11 (1026.1) This is the story of Machiventa Melchizedek, one of the most unique of all characters ever to become connected with the history of Urantia and a personality who may be destin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experience of your irregular and unusual world.

93:10.12 (1026.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4편. 동양의 멜기세덱 교훈

⇨ 093

유란시아 책

09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4편
동양의 멜기세덱 교훈

섹션

소개

1. 베다시대의 인도에서 살렘 교훈
2. 브라만교
3. 브라만의 철학
4. 힌두교
5. 중국에서 진리를 향한 투쟁
6. 노자와 공자
7. 가우타마 싯다르타
8. 불교도의 신앙
9. 불교의 전파
10. 티벳에 있던 종교
11. 불교도의 사상
12. 불교의 하나님 개념

소개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도 스며들었고, 한 분뿐이신 우주의 **하나님**을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유일한 값이라고 제시하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계속 증거 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살렘**을 비롯한 다른 중심지들에서 퍼져나가는 초기의 모든 선전활동{宣傳活動}의 본이 됐다. 어떤 종교에도, **동반구** 전체에 **멜기세덱**의 교훈을 전했던, 이 고귀한 남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사가 **유란시아**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부터 모집됐고, 주로 개종한 원주민을 통해서 교훈을 전파했다. 그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훈련 중심지를 설립했고, 거기서 원주민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쳤으며,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민족 가운데서 선생 역할을 하도록 이 제자들을 임명했다.

It's all about God, our loving Universal Father, and His wondrous creation...

PAPER 94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ORI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Teachings in Vedic India
2. Brahmanism
3. Brahmanic Philosophy
4. The Hindu Religion
5. The Struggle for Truth in China
6. Lao-Tse and Confucius
7. Gautama Siddhartha
8. The Buddhist Faith
9. The Spread of Buddhism
10. Religion in Tibet
11. Buddhist Philosophy
12. The God Concept of Buddhism

INTRODUCTION

94:0.1 (1027.1) THE early teachers of the Salem religion penetrated to the remotest tribes of Africa and Eurasia, ever preaching Machiventa's gospel of man's faith and trust in the one universal God as the only price of obtaining divine favor.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was the pattern for all the early propaganda that went out from Salem and other centers. Urantia has never had more enthusiastic and aggressive missionaries of any religion than these noble men and women who carried the teachings of Melchizedek over the entire Eastern Hemisphere. These missionaries were recruited from many peoples and races, and they largely spread their teachings through the medium of native converts. They established training center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ere they taught the natives the Salem religion and then commissioned these

pupils to function as teachers among their own people.

1. 베다시대의 인도에서 살렘 교훈

멜기세덱 시대에, **인도**는 국제적 지역이었고, 최근에 북쪽과 서쪽에서 침입한 **아리아인_안드족**의 정치적 및 종교적 지배를 받게 됐다. 이때 **아리아인**은 반도{半島}의 북부와 서부 지역만 광범하게 점령했다. **베다시대**에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부족 신격{神格}을 가져왔다. 그들의 종교 경배 형태는 옛 **안드족** 조상의 예식 풍습과 거의 다름없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사제 기능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여자 사제 역할을 했으며, 가족 화로{火爐}를 여전히 제단{祭壇}으로 사용했다.

베다 종파는, 당시에 선생_사제인 **브라만** 신분계층의 지시 아래서 성장과 변질 과정에 있었으며, 이 신분계층은, 확대되는 경배 제례식을 점점 더 통제하려고 했다. **살렘** 선교사가 **인도** 북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전에 33명에 달했던 **아리아인** 신격의 합병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아리아인**의 다신교{多神敎}는 초기 일신교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러 부족 단위로 갈라지고, 각 부족마다 고유의 신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메소포타미아 안드족**의 원래 일신교와 삼자일체론이 이렇게 퇴화한 것은, 기원전 2000년 이후 처음 몇 세기 동안 재통합되는 과정에 있었다. 하늘의 주인인 **다이우스 피타**;대기의 폭풍우를 주관하는 주인인 **인드라**;땅의 주인이고 초기 **삼위일체** 개념이 퇴화한 상징인 머리 셋 달린 화신{火神} **애그니**, 이 삼중 지도력 아래서, 여러 신{神}이 만신전{萬神殿}으로 조직됐다.

명확한 단일신교{單一神敎}의 발전이, 진화된 일신교{一神敎}를 위해서 길을 닦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신격인 **애그니**는, 전체 만신전의 아버지_우두머리로 종종 승격되곤 했다. 때로는 **프라야파티**로 불렸고, 때로는 **브라마**로 명명됐던, 아버지_신격의 원리는, **브라만** 사제들이 나중에 **살렘** 선생들과 벌인 신학적 투쟁에서 사라져버렸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신성_에너지의 원리라고 생각됐다.

살렘 선교사는, **멜기세덱**의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지고자**를 전파했다. 이런 묘사는, **아버지_브라마**가 모든 신{神}의 근원이라는 새로 생겨나는 개념과 완전히 불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살렘**의 교리는 의식{儀式}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브라만** 사제 제도의 교의, 전통, 및 교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브라만** 사제계층은, 신앙을 통한 구원, 즉 제례식 관례와 제물 예식절차

1. THE SALEM TEACHINGS IN VEDIC INDIA

94:1.1 (1027.2) In the days of Melchizedek, India was a cosmopolitan country which had recently come under the political and religious dominance of the Aryan-Andite invaders from the north and west. At this time only the northern and western portions of the peninsula had been extensively permeated by the Aryans. These Vedic newcomers had brought along with them their many tribal deities. Their religious forms of worship followed closely the ceremonial practices of their earlier Andite forebears in that the father still functioned as a priest and the mother as a priestess, and the family hearth was still utilized as an altar.

94:1.2 (1027.3) The Vedic cult was then in process of growth and metamorphosis under the direction of the Brahman caste of teacher-priests, who were gradually assuming control over the expanding ritual of worship. The amalgamation of the onetime thirty-three Aryan deities was well under way when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the north of India.

94:1.3 (1027.4) The polytheism of these Aryans represented a degeneration of their earlier monotheism occasioned by their separation into tribal units, each tribe having its venerated god. This devolution of the original monotheism and trinitarianism of Andite Mesopotamia was in process of resynthesis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second millennium before Christ. The many gods were organized into a pantheon under the triune leadership of Dyaus pitar, the lord of heaven; Indra, the tempestuous lord of the atmosphere; and Agni, the three-headed fire god, lord of the earth and the vestigial symbol of an earlier Trinity concept.

94:1.4 (1027.5) Definite henotheistic developments were paving the way for an evolved monotheism. Agni, the most ancient deity, was often exalted as the father-head of the entire pantheon. The deity-father principle, sometimes called Prajapati, sometimes termed Brahma, was submerged in the theologic battle which the Brahman priests later fought with the Salem teachers. *The Brahman* was conceived as the energy-divinity principle activating the entire Vedic pantheon.

94:1.5 (1028.1) The Salem missionaries preached the one God of Melchizedek, the Most High of heaven. This portrayal was not altogether disharmonious with the emerging concept of the Father-Brahma as the source of all gods, but the Salem doctrine was nonritualistic and hence ran directly counter to the dogmas, traditions, and teachings of the Brahman priesthood. Never would the Brahman

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살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는 **멜기세덱**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인도**에는 중대한 전환점이 이뤄졌다. **살렘** 선교사들은 **베다**의 모든 옛 신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베다** 교리를 따르는 사제인 지도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을 부르짖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과 대항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대의 신성시되는 기록에서 발췌했고, 이런 편집물은 나중에 다시 개정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리그_베다**로 전해오는데, 가장 오래된 신성시되는 책 가운데 하나다. **브라만**들이 당시 민족들에게 제시한 자기네 경배 제례식과 희생제사를, 구체화시키고 형태화 하고 고정시키려고 애쓰는 데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베다**가 계속 만들어졌다. 최상의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기록들은, 개념의 아름다움과 통찰력의 진실성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어떤 본문에든지 필적할 만하다. 그러나 뛰어난 이 종교가 **인도** 남부에서, 수많은 미신, 중파, 및 제례식에 오염되자, 점차 변형돼서, 전에 필사적 사람이 개발한 것들 가운데 가장 잡다한 체계가 되고 말았다. **베다** 경전을 살펴보면, 전에 알려졌던 **신격** 개념 중에서 가장 높은 개념과 가장 타락된 개념을 얼마큼씩 드러낼 것이다.

2. 브라만교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스며들게 따라서, 그들은 점차 확대되는 신분계층 체계와 부딪치게 됐는데, 이 체계는, 증가하는 2차 **상위** 민족들의 물결에 직면하여, 종족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아리아인**의 책략이었다. **브라만** 사제 신분계층이 이 체계의 바로 그 본질이었으므로, 이 사회 질서는 **살렘** 선생들의 전진을 크게 지연시켰다. 이 신분계층 체계는 **아리아** 인종을 구하지 못했지만, **브라만**을 영속시키는 데는 성공했고, 그들은 다음에 **인도**에서 오늘 날까지 종교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베다교**리가 악화되면서, **아리아인** 종파는 **데칸**에서 점점 더 침략 당하게 됐다. 종족이 멸망하고 종교가 소멸하는 형세를 막아보려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브라만** 신분계층은 스스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신격(神格)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효과적이고, 그 효력에서 대단히 강력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우주에 근본적인 두 가지 신성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신격인 **브라만**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계층이라고 선포했다. 다른 어떤 **유라시아**의 민족들 중에서도, 사제가 자기네 신들 위

priests accept the Salem teaching of salvation through faith, favor with God apart from ritualistic observances and sacrificial ceremonials.

94:1.6 (1028.2) The rejection of the Melchizedek gospel of trust in God and salvation through faith marked a vital turning point for India. The Salem missionaries had contributed much to the loss of faith in all the ancient Vedic gods, but the leaders, the priests of Vedism, refused to accept the Melchizedek teaching of one God and one simple faith.

94:1.7 (1028.3) The Brahmins culled the sacred writings of their day in an effort to combat the Salem teachers, and this compilation, as later revised, has come on down to modern times as the Rig-Veda, one of the most ancient of sacred book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Vedas followed as the Brahmins sought to crystallize, formalize, and fix their rituals of worship and sacrifice upon the peoples of those days. Taken at their best, these writings are the equal of any other body of similar character in beauty of concept and truth of discernment. But as this superior religion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uperstitions, cults, and rituals of southern India, it progressively metamorphosed into the most variegated system of theology ever developed by mortal man. An examination of the Vedas will disclose some of the highest and some of the most debased concepts of Deity ever to be conceived.

2. BRAHMANISM

94:2.1 (1028.4) As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southward into the Dravidian Deccan, they encountered an increasing caste system, the scheme of the Aryans to prevent loss of racial identity in the face of a rising tide of the secondary Sangik peoples. Since the Brahman priest caste was the very essence of this system, this social order greatly retarded the progress of the Salem teachers. This caste system failed to save the Aryan race, but it did succeed in perpetuating the Brahmins, who, in turn, have maintained their religious hegemony in India to the present time.

94:2.2 (1028.5) And now, with the weakening of Vedism through the rejection of higher truth, the cult of the Aryans became subject to increasing inroads from the Deccan. In a desperate effort to stem the tide of racial extinction and religious obliteration, the Brahman caste sought to exalt themselves above all else. They taught that the sacrifice to deity in itself was all-efficacious, that it was all-compelling in its potency. They proclaimed that, of the two essential divine principles of the universe, one was Brahman the deity, and the other was the Brahman priesthood. Among no other Urantia peoples did the priests presume to

에 자기를 더 높이고, 신들에게 돌아갈 영예를 자신이 가로챈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뻔뻔스런 주장과 함께 너무 모순되게 멀리 갔으므로, 주변의 덜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타락시키는 종파들 앞에서, 그 불안정한 체계는 통째로 붕괴됐다. 광대한 **베다** 사체계층 자체는,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무례함이 온 **인도**에 가져온, 무기력하고 염세적인 암담한 물결 아래로 허우적거리며 침몰했다.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 짐승, 또는 잡초로 연달아 끝없이 거듭 육신화함으로써, 자아가 진화 과정과는 다르게 영속한다는 두려움을 확실하게 주입시켰다.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일신교가 될 뻔한 어떤 것에 매달릴 수 있었던, 모든 오염시키는 믿음 중에서 어떤 것도, **드라비다의 대칸**에서 온 윤회(輪廻)에 대한 이 믿음처럼-- 즉 혼이 다시 육신화한다는 교리처럼-- 그토록 망쳐놓지는 못했다. 진저리나고 단조로운 반복적인 윤회에 대한 이 믿음은, 초기 **베다** 신앙의 한 부분이었던, 죽고 나서 구원과 영적 승진을 획득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희망을, 고심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았다.

철학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 이후에 곧 뒤이어, 모든 창조의 대령(大靈)인 **브라만**과 절대적으로 결합해서 우주의 안식과 평화 속에 잠김으로써, 자아로부터 영원히 탈출할 수 있다는 교리가 창안됐다. 필사자의 욕망과 인간 포부는 효과적으로 강탈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됐다. 2천년이 넘는 동안, **인도**의 상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욕망에서 탈피하려고 애썼으며, 그리하여 영적 절망상태의 사슬로, 수많은 **힌두** 민족의 혼(魂)을 실질적으로 속박해 온, 후대의 그 종파들과 교훈에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모든 문명 중에서, **베다-아리아인**이, **살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다.

계급제도 자체만으로는, **아리아인**의 종교 문학적 체계를 존속시킬 수 없었고, **대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으로 퍼지자, 절망과 자포자기의 시대가 시작됐다. 생명 없는 종교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암흑시대 동안이었고, 그 후로 계속 유지됐다. 새로운 종파들 중에서 다수는 솔직히 말해서 무신론적인데, 아무 도움 없이 사람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런 구원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유감스런 전체 철학의 많은 부분에서, **멜기세덱**의 교훈은 물론, **아담**의 교훈의 잔재가 왜곡되어 남은 흔적도 두루 발견할 수 있다.

힌두 신앙의 후대 경전인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편집된 것은 바로 이 시대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개인 신앙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개인적 종교 교훈을 거부했으므로, 그리고 **대칸**에서 온, 저하시키고 쇠약하게 만드는 종파와 신조의 물결로, 그리고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과 환생사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으므로, **브라만교** 사

exalt themselves above even their gods, to relegate to themselves the honors due their gods. But they went so absurdly far with these presumptuous claims that the whole precarious system collapsed before the debasing cults which poured in from the surrounding and less advanced civilizations. The vast Vedic priesthood itself floundered and sank beneath the black flood of inertia and pessimism which their own selfish and unwise presumption had brought upon all India.

94:2.3 (1029.1) The undue concentration on self led certainly to a fear of the nonevolutionary perpetuation of self in an endless round of successive incarnations as man, beast, or weeds. And of all the contaminating beliefs which could have become fastened upon what may have been an emerging monotheism, none was so stultifying as this belief in transmigration — the doctrine of the reincarnation of souls — which came from the Dravidian Deccan. This belief in the weary and monotonous round of repeated transmigrations robbed struggling mortals of their long-cherished hope of finding that deliverance and spiritual advancement in death which had been a part of the earlier Vedic faith.

94:2.4 (1029.2) This philosophically debilitating teaching was soon followed by the invention of the doctrine of the eternal escape from self by submergence in the universal rest and peace of absolute union with Brahman, the oversoul of all creation. Mortal desire and human ambition were effectually ravished and virtually destroyed.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the better minds of India have sought to escape from all desire, and thus was opened wide the door for the entrance of those later cults and teachings which have virtually shackled the souls of many Hindu peoples in the chains of spiritual hopelessness. Of all civilizations, the Vedic-Aryan paid the most terrible price for its rejection of the Salem gospel.

94:2.5 (1029.3) Caste alone could not perpetuate the Aryan religio-cultural system, and as the inferior religions of the Deccan permeated the north, there developed an age of despair and hopelessness. It was during these dark days that the cult of taking no life arose, and it has ever since persisted. Many of the new cults were frankly atheistic, claiming that such salvation as was attainable could come only by man's own unaided efforts. But throughout a great deal of all this unfortunate philosophy, distorted remnants of the Melchizedek and even the Adamic teachings can be traced.

94:2.6 (1029.4) These were the times of the compilation of the later scriptures of the Hindu faith, the Brahmanas and the Upanishads. Having rejected the teachings of personal religion through the personal faith experience with the one God, and having become contaminated with the flood of debasing and debilitating cults and creeds from

계층은 이런 오염시키는 믿음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발을 체험했는데;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으려는 명확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인도인**의 신격 개념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겨내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개념에서 인격을 빼버리는 끔찍한 오류에 빠졌으며, **낙원 아버지**라는 드높은 영적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_품는 **절대자**라는,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갖고 나타났다.

브라만들은, 자아_보존을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제 그들은 **브라만**이라는 가설,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철학적 자아,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한 그것을 찾아냈는데, 이것은 그 불행한 날부터 20세기까지 **인도**의 영적 삶을 무력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불교는 **우파니샤드** 문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인도**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번성했음에도, **불교**는 후대의 **힌두교**와 경쟁할 수 없었으며; 도덕 수준이 더 높았음에도,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교**의 묘사는 **힌두교**의 묘사보다도 분명치 못했는데, **힌두교**는 더 지위가 낮고 개인적인 신격들을 마련해 줬다. **알라**가 우주의 최고 **하나님**이라는 선명한 개념을 가진 호전적인 **이슬람**의 돌진 앞에서, **불교**는 마침내 **인도** 북부 지역을 넘겨줬다.

3. 브라만의 철학

브라만교의 가장 높은 단계는 거의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정신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 속으로 가장 훌륭하게 도달한 것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최종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인도인**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중 종교 개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학적 국면을 사색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는데: 이 두 개념은, 온 우주의 피조물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가 실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완전하라고 명하신 그 **아버지**께 도달하려고 애쓰는 동안, 바로 이 피조물들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브라만의 개념을 보면, 당대의 지성인들은, 만유에_충만한 어떤 **절대자** 관념에 정말로 붙잡혀 있었는데, 이 가정{假定}이 한꺼번에 창조 에너지와 시공우주의 반작용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도무지 정의{定義}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즉 유한한 모든 특성을 연달아 부정{否定}함으로써만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것은 확실히, 절대 존재, 즉 심지어 무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이 개념에는 대체로 인격 속성이 빠져 있으며, 따라서 개별 신앙인이 이를 체험할

the Deccan, with their anthropomorphisms and reincarnations, the Brahmanic priesthood experienced a violent reaction against these vitiating beliefs; there was a definite effort to seek and to find *true reality*. The Brahmins set out to deanthropomorphize the Indian concept of deity, but in so doing they stumbled into the grievous error of depersonalizing the concept of God, and they emerged, not with a lofty and spiritual ideal of the Paradise Father, but with a distant and metaphysical idea of an all-encompassing Absolute.

94:2.7 (1029.5) In their efforts at self-preservation the Brahmins had rejected the one God of Melchizedek, and now they found themselves with the hypothesis of Brahman, that indefinite and illusive philosophic self, that impersonal and impotent *it* which has left the spiritual life of India helpless and prostrate from that unfortunate day to the twentieth century.

94:2.8 (1029.6) It was during the times of the writing of the Upanishads that Buddhism arose in India. But despite its successes of a thousand years, it could not compete with later Hinduism; despite a higher morality, its early portrayal of God was even less well-defined than was that of Hinduism, which provided for lesser and personal deities. Buddhism finally gave way in northern India before the onslaught of a militant Islam with its clear-cut concept of Allah as the supreme God of the universe.

3. BRAHMANIC PHILOSOPHY

94:3.1 (1030.1) While the highest phase of Brahmanism was hardly a religion, it was truly one of the most noble reaches of the mortal mind into the domains of philosophy and metaphysics. Having started out to discover final reality, the Indian mind did not stop until it had speculated about almost every phase of theology excepting the essential dual concept of religion: the existence of the Universal Father of all universe creatures and the fact of the ascending experience in the universe of these very creatures as they seek to attain the eternal Father, who has commanded them to be perfect, even as he is perfect.

94:3.2 (1030.2) In the concept of Brahman the minds of those days truly grasped at the idea of some all-pervading Absolute, for this postulate was at one and the same time identified as creative energy and cosmic reaction. Brahman was conceived to be beyond all definition, capable of being comprehended only by the successive negation of all finite qualities. It was definitely a belief in an absolute, even an infinite, being, but this concept was largely devoid of personality attributes and was therefore not experiential by individual

수 없었다.

브라만 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자존체**{自存體}, 잠재하는 시공우주의 근원적 창조 효력, 모든 영원 세계 전체에 정적{靜的}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자아**로 생각됐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격 개념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할 수만 있었다면, **브라만**을, 연합하기 쉽고 창조적이라고, 피조된 진화하는 존재가 다가갈 수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다음에 그런 가르침은 **유란시아**에서 **신격**에 대한 가장 진보된 설명이 됐을 터인데, 이는 그 가르침이 전체 신격 기능 가운데 처음 다섯 수준을 포함하고, 아마 나머지 둘을 상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국면에서, **유일한 우주의 대령**{大靈}이 모든 피조된 실존을 합친 총체라는 개념은, **지존 하신 분**에 대한 진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도록 **인도** 철학자를 이끌었지만, 이런 진리는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들이 **브라만** **나라야나**라는 이론적 일신교{一神敎} 목표에 도달하기에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어떤 개인적 접근법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연속성이라는 인과응보 원칙은, 다시, **지존자의 신격** 현존 안에 이뤄지는 모든 시공간 행위의 영향이 통합된다는 진리에 매우 근접하기는 했지만, 이런 가정{假定}은, 결코 개별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대등하게 **신격**에 도달한다고 규정한 적이 없었고, 오직 **우주적 대령**이 모든 인격을 궁극적으로 흡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브라만교**의 철학은, **사고 조율사**의 내주를 거의 깨달을 뻔했지만, 진리를 오해함으로 비뚤어지지만 했다. **브라만**의 내주가 바로 혼이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우주의 한 분**이 내주하는 것을 일단 제쳐놓고, 인간의 개체성이 전혀 없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손상되지만 앓았더라면, 진보된 종교를 위해서 길을 닦았을지도 모른다.

자아의 혼이 **대령**과 합쳐진다는 교리에서, **인도** 신학자들은, 인간다운 어떤 존재, 즉 새롭고 독특한 어떤 존재,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됨으로써 태어나는 어떤 존재가 생존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혼이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만유의 아버지의 품안으로 조율사가 돌아간다는 진리**와 아주 유사하지만, **조율사와는 달리**, 또한 생존하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필사자 인격체의 모론시아 사본{寫本}이다. 그리고 지금껏 중요한 이 개념이 **브라만**의 철학에는 치명적으로 결여됐다.

브라만의 철학은 우주의 많은 사실에 접근했고, 수많은 시공우주 진리에 가까이 도달했지만, 절대, 초월, 및 유한 등과 같은 몇 가지 수준의 실

religionists.

94:3.3 (1030.3) Brahman-Narayana was conceived as the Absolute, the infinite IT IS, the primordial creative potency of the potential cosmos, the Universal Self existing static and potential throughout all eternity. Had the philosophers of those days been able to make the next advance in deity conception, had they been able to conceive of the Brahman as associative and creative, as a personality approachable by created and evolving beings, then might such a teaching have become the most advanced portraiture of Deity on Urantia since it would have encompassed the first five levels of total deity function and might possibly have envisioned the remaining two.

94:3.4 (1030.4) In certain phases the concept of the One Universal Oversoul as the totality of the summation of all creature existence led the Indian philosophers very close to the truth of the Supreme Being, but this truth availed them naught because they failed to evolve any reasonable or rational personal approach to the attainment of their theoretic monotheistic goal of Brahman-Narayana.

94:3.5 (1030.5) The karma principle of causality continuity is, again, very close to the truth of the repercussional synthesis of all time-space actions in the Deity presence of the Supreme; but this postulate never provided for the co-ordinate personal attainment of Deity by the individual religionist, only for the ultimate engulfment of all personality by the Universal Oversoul.

94:3.6 (1030.6) The philosophy of Brahmanism also came very near to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of the Thought Adjusters, only to become perverted through the misconception of truth. The teaching that the soul is the indwelling of the Brahman would have paved the way for an advanced religion had not this concept been completely vitiated by the belief that there is no human individuality apart from this indwelling of the Universal One.

94:3.7 (1030.7) In the doctrine of the merging of the self-soul with the Oversoul, the theologians of India failed to provide for the survival of something human, something new and unique, something born of the union of the will of man and the will of God. The teaching of the soul's return to the Brahman is closely parallel to the truth of the Adjuster's return to the bosom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re is something distinct from the Adjuster which also survives, the morontial counterpart of mortal personality. And this vital concept was fatally absent from Brahmanic philosophy.

94:3.8 (1031.1) Brahmanic philosophy has approximated many of the facts of the universe and has approached numerous cosmic truths, but

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너무 자주 저질렀다. 절대 수준에서 유한하고_착각될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수준에서는 철저히 실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그 철학은, **만유의 아버지의** 근본 인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진화 피조물의 제한된 **하나님** 체험으로부터,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버지를** 무한하게 체험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몸소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it has all too often fallen victim to the error of failing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several levels of reality, such as absolute, transcendental, and finite. It ha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at what may be finite-illusory on the absolute level may be absolutely real on the finite level. And it has also taken no cognizance of the essential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who is personally contactable on all levels from the evolutionary creature's limited experience with God on up to the limitless experience of the Eternal Son with the Paradise Father.

4. 힌두교

인도에서 몇 세기가 지나자 사람들은, **멜기세덱** 선교사의 교훈으로 인해 변경돼 왔고 나중에 **브라만** 사제계층이 구체화한, **베다**의 고대 제례식으로 어느 정도 되돌아갔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국제적이었던 이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마호메트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에 반응해서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이 도착할 무렵에, 그 교훈은 이미 너무 **서양화** 되어 “백인의 종교”가 돼버렸으므로, **힌두** 지성인에게는 이상하고 낯설었다.

현재의 **힌두** 신학은 신격과 신성에 대해서 네 개의 하향식 수준을 묘사하고 있다.

1.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한 분, 자존체(自存體).

2. **삼신일체**(三神一體, **힌두교**의 최고 삼자 일체. 이런 연합에서 첫째 신{神}인 **브라만**은 **브라만**--곧 무한한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창조된 존재로 생각된다. 범신론적 **무한한 한 분**과 유사하게 동일시하지만 았ادت라면, **브라마**는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브라마**는 숙명과도 동일시된다.

둘째와 셋째 신에 해당하는 **시바**와 **비쉬누** 숭배는 기원후 1,000년 기간에 생겨났다. **시바**는 생사{生死}의 주인이고, 풍요의 신이며, 파괴의 주{主}다. **비쉬누**는 주기적으로 인간 형태로 육신화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몹시 인기가 좋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쉬누**는 **인도인**의 상상의 세계에서 실체적이고 생생한 존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시바**와 **비쉬누**를 각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최고의 존재로 간주한다.

3. **베다** 및 **베다**_이후 신격들. **아그니**, **인드라**, **소마** 등과 같은 **아리아인**의 여러 고대{古代} 신은, **삼신일체**의 세 신{神}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수많은 신은 **베다 인도**의 초기 시대부터 계속 형성됐고, 이것들도 **힌두** 만신전에 합병됐다.

4. THE HINDU RELIGION

94:4.1 (1031.2) With the passing of the centuries in India, the populace returned in measure to the ancient rituals of the Vedas as they had been modified by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crystallized by the later Brahman priesthood. This, the oldest and most cosmopolitan of the world's religions, has undergone further changes in response to Buddhism and Jainism and to the later appearing influences of Mohammedanism and Christianity. But by the time the teachings of Jesus arrived, they had already become so Occidentalized as to be a “white man's religion,” hence strange and foreign to the Hindu mind.

94:4.2 (1031.3) Hindu theology, at present, depicts four descending levels of deity and divinity:

94:4.3 (1031.4) 1. *The Brahman*, the Absolute, the Infinite One, the IT IS.

94:4.4 (1031.5) 2. *The Trimurti*, the supreme trinity of Hinduism. In this association *Brahma*, the first member, is conceived as being self-created out of the Brahman — infinity. Were it not for close identification with the pantheistic Infinite One, *Brahma* could constitute the foundation for a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Brahma* is also identified with fate.

94:4.5 (1031.6) The worship of the second and third members, *Siva* and *Vishnu*, arose in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Siva* is lord of life and death, god of fertility, and master of destruction. *Vishnu* is extremely popular due to the belief that he periodically incarnates in human form. In this way, *Vishnu* becomes real and living in the imaginations of the Indians. *Siva* and *Vishnu* are each regarded by some as supreme over all.

94:4.6 (1031.7) 3. *Vedic and post-Vedic deities*. Many of the ancient gods of the Aryans, such as *Agni*, *Indra*, *Soma*, have persisted as secondary to the three members of the Trimurti. Numerous additional gods have arisen since the early days of Vedic India, and these have also been

4. 반신반인{半神半人}: 초인간, 반신{半神}, 영웅, 귀신, 유령, 악한 영들, 요정, 괴물, 도깨비, 및 후대 종파의 성자{聖子}들.

힌두교는 오랫동안 **인도** 민족에게 생기를 주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아량 있는 종교였다. **힌두교**의 큰 장점은, 그 종교가 **유란시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응력 있고,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종교로 판명돼 왔다는 사실에 있다. **힌두교**는 거의 무제한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지적인 **브라마**의 고상하고 어느 정도 일신교{一神敎} 같은 의견으로부터, 천하고 억압받는 계층의 무지한 신자들이 가진, 형편없는 주물숭배체계와 원시 종파 풍습에 이르기까지, 보기 드물게 광범한 융통성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

힌두교가 살아남은 것은, 그 종교가 본질적으로 **인도**의 기본 사회 구조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다. **힌두교**에는 교란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큰 성직자 계급 제도가 없으며; 그 민족의 생활양식에 스며들어 있다. **힌두교**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모든 다른 종파를 능가하며, 다른 여러 종교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가우타마 부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역시 육신화한 **비쉬누**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인도**에 매우 필요한 것은, **예수교인**{敎人}의 복음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이 자녀신분이요, 따라서 형제관계임을--묘사하는 것이며, 이 복음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실현된다. **인도**에는 철학 체제가 존재하고, 종파 체계가 나타나는데; 다만 필요한 것은, **미가엘**의 증여 생애를 백인의 종교로 만들려는 **서양**의 교의와 교리의 옷을 벗겨낸, **사람의 아들**의 원래 복음에 제시된 활력을 주는 역동적 사랑의 불꽃이다.

5. 중국에서 진리를 향한 투쟁

지고자 하나님을 전파하고,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전파하면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의 철학과 종교 사조를 많이 흡수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그 후계자들이 임명한 선생들은 그들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스며들었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둘째 천년의 중엽이었다. **살렘족**은 100년 넘는 동안 **시 후크**에 본부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황인종의 영토 전역에서 두루 가르쳤다.

가장 초기 형태의 **도교**가 **중국**에서 발생된 것은 이런 가르침의 직접 결과였는데, 오늘날 통용

incorporated into the Hindu pantheon.

94:4.7 (1031.8) 4. The demigods: supermen, semigods, heroes, demons, ghosts, evil spirits, sprites, monsters, goblins, and saints of the later-day cults.

94:4.8 (1031.9) While Hinduism has long failed to vivify the Indian people, at the same time it has usually been a tolerant religion. Its great strength lies in the fact that it has proved to be the most adaptive, amorphous religion to appear on Urantia. It is capable of almost unlimited change and possesses an unusual range of flexible adjustment from the high and semimontheistic speculations of the intellectual Brahman to the arrant fetishism and primitive cult practices of the debased and depressed classes of ignorant believers.

94:4.9 (1032.1) Hinduism has survived because it is essentially an integral part of the basic social fabric of India. It has no great hierarchy which can be disturbed or destroyed; it is interwoven into the life pattern of the people. It has an adaptability to changing conditions that excels all other cults, and it displays a tolerant attitude of adoption toward many other religions, Gautama Buddha and even Christ himself being claimed as incarnations of Vishnu.

94:4.10 (1032.2) Today, in India, the great need is for the portrayal of the Jesusonian gospel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and consequent brotherhood of all men, which is personally realized in loving ministry and social service. In India the philosophical framework is existent, the cult structure is present; all that is needed is the vitalizing spark of the dynamic love portrayed in the original gospel of the Son of Man, divested of the Occidental dogmas and doctrines which have tended to make Michael's life bestowal a white man's religion.

5. THE STRUGGLE FOR TRUTH IN CHINA

94:5.1 (1032.3) As the Salem missionaries passed through Asia, spreading the doctrine of the Most High God and salvation through faith, they absorbed much of the philosophy and religious thought of the various countries traversed. But the teachers commissioned by Melchizedek and his successors did not default in their trust; they did penetrate to all peoples of the Eurasian continent, and it was in the middle of the second millennium before Christ that they arrived in China. At See Fuch,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the Salemites maintained their headquarters, there training Chinese teachers who taught throughout all the domains of the yellow race.

94:5.2 (1032.4) It was in direct consequence of this teaching that the earliest form of Taoism arose in

되는 이름의 종교와는 크게 달랐다. 초기, 즉 원시 형태의 **도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합성된 형태였다:

1. 계속 남아있는 **싱글랑톤**의 교훈, 이것은 **상제**{上帝},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개념으로 지속됐다. **싱글랑톤**이 살던 시대에는, **중국** 민족이 실질적으로 일신교를 믿게 됐으며;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기에 몰두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늘의 영**, 즉 우주 통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황인종은, 그 후에 여러 세기 동안, 많은 하급{下級} 신과 영 개념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교활하게 스며들었음에도, **신격**에 대해서 가졌던 이런 초기 개념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2.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증여하려는, **지고자 창조주 신격**을 믿는 **살렘** 종교. 그러나 **멜기세덱** 선교사가 황인종 지역으로 스며들 때가 되자, 그들의 원래 메시지는, **마키벤타** 시대에 **살렘**에 있었던 단순한 교리에서, 이미 상당히 변형돼 있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3. 모든 악{惡}에서 도피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인도인** 철학자들이 가진 **브라만 절대자** 개념. **베딕**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은, 동쪽을 향한 **살렘** 종교의 전파에 아마 가장 큰 외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브라만**--곧 **절대자**--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살렘** 사람의 구원 사상에 불어넣었다.

복합적인 이 믿음은, 종교 철학적 사고에 깔려있는 영향력으로서 황인종과 갈색인종의 지역 도처에 퍼졌다. **일본**에서는 이런 원시 **도교**가 **신토**{神道}로 알려졌다, **팔레스틴**의 **살렘**으로부터 아득히 먼 이 나라에서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잊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살았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육신화에 대해서 배웠다.

중국에서 이런 모든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조상 숭배 종파와 후일에 혼동되고 혼합됐다. 그러나 **싱글랑톤** 시대 이후로, **중국인**이 제사장제도에 무력하게 노예화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황인종은 야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리된 문명으로 발전된 첫 종족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들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 해방됐고, 다른 인종들이 두려워한 것과는 달리, 죽은 사람의 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제들로부터 해방된 초기 성공에서 더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거의 마찬가지로 비참한 실책이었던, 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살렘족속**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않았다. 6세기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교훈을 수립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세웠던 복음의 기초 위에서만였다. **노자**{老子}와 **공자**{孔子} 시대의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정서는, 그 전 시대의 **살렘** 선교사의 교훈으로부터 자라났다.

China, a vastly different religion than the one which bears that name today. Early or proto-Taoism was a compound of the following factors:

94:5.3 (1032.5) 1. The lingering teachings of Singlangton, which persisted in the concept of Shang-ti, the God of Heaven. In the times of Singlangton the Chinese people became virtually monotheistic; they concentrated their worship on the One Truth, later known as the Spirit of Heaven, the universe ruler. And the yellow race never fully lost this early concept of Deity, although in subsequent centuries many subordinate gods and spirits insidiously crept into their religion.

94:5.4 (1032.6) 2. The Salem religion of a Most High Creator Deity who would bestow his favor upon mankind in response to man's faith. But it is all too true that, by the time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had penetrated to the lands of the yellow race, their original message had become considerably changed from the simple doctrines of Salem in the days of Machiventa.

94:5.5 (1032.7) 3. The Brahman-Absolute concept of the Indian philosophers, coupled with the desire to escape all evil. Perhaps the greatest extraneous influence in the eastward spread of the Salem religion was exerted by the Indian teachers of the Vedic faith, who injected their conception of the Brahman — the Absolute — into the salvationistic thought of the Salemites.

94:5.6 (1033.1) This composite belief spread through the lands of the yellow and brown races as an underlying influence in religio-philosophic thought. In Japan this proto-Taoism was known as Shinto, and in this country, far-distant from Salem of Palestine, the peoples learned of the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who dwelt upon earth that the name of God might not be forgotten by mankind.

94:5.7 (1033.2) In China all of these beliefs were later confused and compounded with the ever-growing cult of ancestor worship. But never since the time of Singlangton have the Chinese fallen into helpless slavery to priestcraft. The yellow race was the first to emerge from barbaric bondage into orderly civilization because it was the first to achieve some measure of freedom from the abject fear of the gods, not even fearing the ghosts of the dead as other races feared them. China met her defeat because she failed to progress beyond her early emancipation from priests; she fell into an almost equally calamitous error, the worship of ancestors.

94:5.8 (1033.3) But the Salemites did not labor in vain. It was upon the foundations of their gospel that the great philosophers of sixth-century China built their teachings. The moral atmosphere and the spiritual sentiments of the times of Lao-tse and Confucius grew up out of the teachings of the Salem

missionaries of an earlier age.

6. 노자와 공자

미가엘이 도래한 때보다 약 600년 전에, 육체에서 떠난 지 오래된 **멜기세덱**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것이 **유란시아**의 옛 신앙에 전반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그 순수성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미가엘**의 선구자로서 그의 사명이 한동안 위험에 처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에, 영적 매개체의 특별한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 진리가 **유란시아**에 아주 특이하게 여러 번 발표됐는데, 행성 감독관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 인간 선생의 작용으로 **살렘**의 복음이 다시 규정되고 소생됐으며, 당시에 제시된 대로, 대부분은 본 기록이 쓰이던 때에도 존속했다.

영적 진보에서 독특했던 이 세기의 특징은, 종교, 도덕, 및 철학에 위대한 선생들이,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중국**에서 탁월한 두 선생은, **노자**와 **공자**다.

노자는, 모든 창조의 **유일한 최초 원인**으로서 **도(道)**를 천명했을 때, **살렘** 전승의 개념에 직접 기초했다. **노자**는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도**, 즉 **지존자 하나님**과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의 영속적 합일(合一)이라”고 가르쳤다. 근본 원인에 대한 그의 남독은 가장 통찰력 있는 것이었는데, 그는: “**통일**은 **절대적 도**에서 발생되며, **통일**에서 시공우주 **이원성(二元性)**이 나오고, 그런 **이원성**에서 **삼위일체**가 실존하게 되며, **삼위일체**는 모든 실체의 근본 원천이다.” “모든 실체는 시공우주의 잠재성과 실재성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며, 신성(神性)의 영이 이것들을 영원히 조화시킨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한 **노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교리를 가장 처음 제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선(善)은 선을 낳지만, 정말로 선한 사람에게는 악조차 선을 초래한다.”

그는 피조물이 **창조주**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쳤으며, 생명을 시공우주 잠재성으로부터 인격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죽음은 이 피조 인격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했다. 참된 신앙에 대한 그의 개념은 특이했으며, 그도 또한 참된 신앙을 “어린이의 태도”에 자주 비유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분명했는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절대자 신격**은 싸우지 않지만 항상 승리하며; 인류를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지만 그들의 참된 간구에 응답할 준비가 항상 돼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인내하고, 그 뜻의 표현은 영원히 필연적이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에 대해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6. LAO-TSE AND CONFUCIUS

94:6.1 (1033.4) About six hundred years before the arrival of Michael, it seemed to Melchizedek, long since departed from the flesh, that the purity of his teaching on earth was being unduly jeopardized by general absorption into the older Urantia beliefs. It appeared for a time that his mission as a forerunner of Michael might be in danger of failing. And in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hrough an unusual co-ordination of spiritual agencies, not all of which are understood even by the planetary supervisors, Urantia witnessed a most unusual presentation of manifold religious truth. Through the agency of several human teachers the Salem gospel was restated and revitalized, and as it was then presented, much has persisted to the times of this writing.

94:6.2 (1033.5) This unique century of spiritual progress was characterized by great religious, moral, and philosophic teachers all over the civilized world. In China, the two outstanding teachers were Lao-tse and Confucius.

94:6.3 (1033.6) Lao-tse built directly upon the concepts of the Salem traditions when he declared Tao to be the One First Cause of all creation. Lao was a man of great spiritual vision. He taught that man's eternal destiny was “everlasting union with Tao, Supreme God and Universal King.” His comprehension of ultimate causation was most discerning, for he wrote: “Unity arises out of the Absolute Tao, and from Unity there appears cosmic Duality, and from such Duality, Trinity springs forth into existence, and Trinity is the primal source of all reality.” “All reality is ever in balance between the potentials and the actuals of the cosmos, and these are eternally harmonized by the spirit of divinity.”

94:6.4 (1033.7) Lao-tse also made one of the earliest presentations of the doctrine of returning good for evil: “Goodness begets goodness, but to the one who is truly good, evil also begets goodness.”

94:6.5 (1033.8) He taught the return of the creature to the Creator and pictured life as the emergence of a personality from the cosmic potentials, while death was like the returning home of this creature personality. His concept of true faith was unusual, and he too likened it to the “attitude of a little child.”

94:6.6 (1034.1) His understanding of the eternal purpose of God was clear, for he said: “The Absolute Deity does not strive but is always victorious; he does not coerce mankind but always stands ready to respond to their true desires; the will of God is eternal in patience and eternal in the inevitability of its expression.” And of the true

더 복되다는 진리를 표현하면서: “선한 사람은 진리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 재산을 동료에게 나눠주려고 애쓰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를 실현함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익을 주고 파괴시키지 않으며; 참된 신자(信者)의 목적은 항상 실천함에 있고 결코 강요함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저항에 대한 **노자**의 가르침과, 행동 및 강압 사이에 대해서 그가 했던 구분이 나중에는, “아무 것도 보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라는 믿음으로 왜곡됐다. 그러나 **노자**는 그런 오류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무저항에 대한 그의 표현은, **중국** 민족들의 평화로운 성향이 더 발현되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그러나 20세기 **유란시아**에서 유행하는 **도교**는, 그 옛 철학자의 고상한 시공우주 개념 및 정서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가르쳤고, 그 진리는 이랬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며, 사람은 그 에너지로, **도(道)**, 즉 우주들의 **영원한 신격**이요 **절대 창조주**이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

공자(공 후 子)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노자**보다는 어렸다. **공자**의 교리는, 황인종의 오래된 역사에서 이뤄진, 더 나은 도덕 전통에 기초를 뒀으며, 또한 **살렘** 선교사들의 계속 남아있던 전승에도 얼마간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요 업적은, 고대 철학자들의 현명한 교훈을 편집한 데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환영받지 못한 선생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문서와 교훈은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의 자리를 도덕으로 대체시키면서, 무당들에게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나갔으며; 질서가 새로운 주물이 되게 했고, 조상의 행위를 공경하도록 만들었는데, 본 기록이 이뤄지던 당시에도 **중국인**은 여전히 이것을 공경하고 있었다.

도덕성에 대한 **공자**의 훈계는, 이 세상 방법이 하늘 방법의 왜곡된 그림자라는, 즉; 현세 문명의 참된 모범은, 하늘의 영원한 체계가 반사(反射) 투영된 것이라는 이론에 입각했다. **유교(儒敎)**에 잠재하는 **하나님** 개념은, 시공우주의 원형인 **천도(天道)**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 거의 완전하게 경시됐다.

노자의 교훈은 **동양**에서 소수의 무리에게 전수됐지만, **공자**가 기록한 문서는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인**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도덕적 바탕의 기초가 됐다. 이런 **공자**의 격언은 지난 날의 최선의 것을 존속시켰지만, 그토록 공경 받은 그 업적을 창출했던 바로 그 **중국인**의 연구 정신에 어느 정도 해로운 것이기도

religionist he said, in expressing the truth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The good man seeks not to retain truth for himself but rather attempts to bestow these riches upon his fellows, for that is the realization of truth. The will of the Absolute God always benefits, never destroys; the purpose of the true believer is always to act but never to coerce.”

94:6.7 (1034.2) Lao's teaching of nonresistance and the distinction which he made between *action* and *coercion* became later perverted into the beliefs of “seeing, doing, and thinking nothing.” But Lao never taught such error, albeit his presentation of nonresistance has been a factor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acific predilections of the Chinese peoples.

94:6.8 (1034.3) But the popular Taoism of twentieth-century Urantia has very little in common with the lofty sentiments and the cosmic concepts of the old philosopher who taught the truth as he perceived it, which was: That faith in the Absolute God is the source of that divine energy which will remake the world, and by which man ascends to spiritual union with Tao, the Eternal Deity and Creator Absolute of the universes.

94:6.9 (1034.4) *Confucius* (Kung Fu-tze) was a younger contemporary of Lao in sixth-century China. Confucius based his doctrines upon the better moral traditions of the long history of the yellow race, and he was also somewhat influenced by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Salem missionaries. His chief work consisted in the compilation of the wise sayings of ancient philosophers. He was a rejected teacher during his lifetime, but his writings and teachings have ever since exerted a great influence in China and Japan. Confucius set a new pace for the shamans in that he put morality in the place of magic. But he built too well; he made a new fetish out of order and established a respect for ancestral conduct that is still venerated by the Chinese at the time of this writing.

94:6.10 (1034.5) The Confucian preachment of morality was predicated on the theory that the earthly way is the distorted shadow of the heavenly way; that the true pattern of temporal civilization is the mirror reflection of the eternal order of heaven. The potential God concept in Confucianism was almost completely subordinated to the emphasis placed upon the Way of Heaven, the pattern of the cosmos.

94:6.11 (1034.6) The teachings of Lao have been lost to all but a few in the Orient, but the writings of Confucius have ever since constituted the basis of the moral fabric of the culture of almost a third of Urantians. These Confucian precepts, while perpetuating the best of the past, were somewhat inimical to the very Chinese spirit of investigation that had produced those achievements which

했다. **진시황** 황실의 수고와 **묵자**(墨子)의 교훈이 이 교리의 영향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는데, **묵자**는 도덕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형제관계를 전파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는 옛 탐구정신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썼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실패했다.

중국의 영적 암흑기(暗黒期) 시대에, 다른 여러 영적 및 도덕적 선생과 마찬가지로, 결국 추종자들이 **공자**와 **노자**를 신격화했는데, 이 시대는 **도교** 신앙이 쇠퇴하고 타락하던 때와, **인도**로부터 **불교** 선교사들이 도래하던 때 사이에 있었다. 이런 영적 퇴폐기 동안에 황인종의 종교는, 마귀, 용, 및 악한 영들로 가득 찬 비참한 신학(神學) 체계로 퇴보했는데, 이 모든 것은, 계몽되지 못한 인간 정신에 두려움이 돌아온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보된 종교로 말미암아 한때 인간 사회의 우위(優位)를 차지했던 **중국**은, 그 후에 **하나님**의식을 발전시키는 참된 경로에서 일시적으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지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식은 개별 필자자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 행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명이 참으로 진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

7. 가우타마 싯다르타

중국에서 **노자** 및 **공자**와 같은 시대에, 진리를 가르친 다른 위대한 선생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가우타마 싯다르타**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 북부 지방 **네팔**에서 태어났다.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가 터무니없을 만큼 부유한 통치자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부 **히말라야**에 있는 협소하고 외진 산악 계곡에서, 주위의 목인 하에 다스리는 하급(下級) 족장의 자리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 후계자였다.

가우타마는 무익한 요가 실습을 6년 동안 한 후에, **불교** 철학으로 발전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싯다르타**는 점점 왕성해지는 신분계층 체계에 대항해서, 단호하지만 효과 없는 투쟁을 했다. 이 젊은 선지(先知) 왕자에게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크게 호감을 샀던, 고상한 성실성과 독특한 이타심이 있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 고뇌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추구하려는 풍습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인도에서 혼란되고 극단적인 숭배 관습이 한창일 때, 더 온전하고 절도 있는 **가우타마**의 교훈이 참신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신들, 사제들, 및 그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비난했지만, **우주의**

were so venerated. The influence of these doctrines was unsuccessfully combated both by the imperial efforts of Ch'in Shih Huang Ti and by the teachings of Mo Ti, who proclaimed a brotherhood founded not on ethical duty but on the love of God. He sought to rekindle the ancient quest for new truth, but his teachings failed before the vigorous opposition of the disciples of Confucius.

94:6.12 (1034.7) Like many other spiritual and moral teachers, both Confucius and Lao-tse were eventually deified by their followers in those spiritually dark ages of China which intervened between the decline and perversion of the Taoist faith and the coming of the Buddhist missionaries from India. During these spiritually decadent centuries the religion of the yellow race degenerated into a pitiful theology wherein swarmed devils, dragons, and evil spirits, all betokening the returning fears of the unenlightened mortal mind. And China, once at the head of human society because of an advanced religion, then fell behind because of temporary failure to progress in the true path of the development of that God-consciousness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true progress, not only of the individual mortal, but also of the intricate and complex civilizations which characterize the advance of culture and society on an evolutionary planet of time and space.

7. GAUTAMA SIDDHARTHA

94:7.1 (1035.1) Contemporary with Lao-tse and Confucius in China, another great teacher of truth arose in India. Gautama Siddhartha was born in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in the north Indian province of Nepal. His followers later made it appear that he was the son of a fabulously wealthy ruler, but, in truth, he was the heir apparent to the throne of a petty chieftain who ruled by sufferance over a small and secluded mountain valley in the southern Himalayas.

94:7.2 (1035.2) Gautama formulated those theories which grew into the philosophy of Buddhism after six years of the futile practice of Yoga. Siddhartha made a determined but unavailing fight against the growing caste system. There was a lofty sincerity and a unique unselfishness about this young prophet prince that greatly appealed to the men of those days. He detracted from the practice of seeking individual salvation through physical affliction and personal pain. And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carry his gospel to all the world.

94:7.3 (1035.3) Amid the confusion and extreme cult practices of India, the saner and more moderate teachings of Gautama came as a refreshing relief. He denounced gods, priests, and their sacrifices,

한 분의 인격을 깨닫는 면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했다. 개별 인간의 혼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혼이 윤회한다는 유서_깊은 믿음에 반대하여 **가우타마**가 단호하게 투쟁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구하고, 거대한 우주에서 그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도록 고귀한 노력을 했지만, 상승하는 필사자의 실제적이고 숭고한 집으로--즉 **낙원**으로-- 가는, 그리고 영원한 실존으로서 확장하는 봉사에 이르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가우타마는 진정한 선지자였으며, 은둔자 **고다드**의 지침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살렘** 복음을 부활시키는 영감{靈感}으로 **인도** 전체를 일깨웠을지도 모른다. **고다드**는 **멜기세덱** 선교사의 전승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어느 가문{家門}의 후손이었다.

가우타마는 **베나레스**에 학교를 설립했고, 그 이듬해에 **바우탄**이라는 학생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관해서 **살렘** 선교사가 전한 전승을 스승에게 전했으며; **싯다르타**는 **만유의 아버지**에 관해서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갖지는 못했지만, 신앙--곧 꾸밈없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보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제자를 60명씩 무리지어 내보내기 시작함으로써, “값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의로움과 응보에 의거한 신앙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가우타마의 아내는 남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여승{女僧} 체제의 설립자가 됐다. 그의 아들이 뒤를 이었고, 그 종파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그는 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닫기는 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살렘** 복음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고, 늙어서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희의 구원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최선의 상태로 선포했을 때, 보편적 구원에 대한 **가우타마**의 복음, 즉 제물, 고뇌, 제례식, 및 사제로부터의 해방은 당시에 혁명적이고 놀라운 교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살렘** 복음의 부흥과 흡사했다. 그 복음은 자포자기한 수백만의 혼에게 도움을 줬고, 나중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우스꽝스럽게 타락했음에도, 수많은 인간이 여전히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싯다르타는,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현대 종파에 잔존해 온 것보다 훨씬 많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의 교훈이 아닌 것처럼, 현대 **불교**는 **가우타마 싯다르타**의 교훈이 아니다.

but he too failed to perceive the *personality* of the One Universal. Not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individual human souls, Gautama, of course, made a valiant fight against the time-honored belief in transmigration of the soul. He made a noble effort to deliver men from fear, to make them feel at ease and at home in the great universe, but he failed to show them the pathway to that real and supernal home of ascending mortals — Paradise — and to the expanding service of eternal existence.

94:7.4 (1035.4) Gautama was a real prophet, and had he heeded the instruction of the hermit Godad, he might have aroused all India by the inspiration of the revival of the Salem gospel of salvation by faith. Godad was descended through a family that had never lost the tradition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94:7.5 (1035.5) At Benares Gautama founded his school, and it was during its second year that a pupil, Bautan, imparted to his teacher the traditions of the Salem missionaries about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Abraham; and while Siddhartha did not have a very clear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he took an advanced stand on salvation through faith — simple belief. He so declared himself before his followers and began sending his students out in groups of sixty to proclaim to the people of India “the glad tidings of free salvation; that all men, high and low, can attain bliss by faith in righteousness and justice.”

94:7.6 (1035.6) Gautama's wife believed her husband's gospel and was the founder of an order of nuns. His son became his successor and greatly extended the cult; he grasped the new idea of salvation through faith but in his later years wavered regarding the Salem gospel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alone, and in his old age his dying words wer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94:7.7 (1036.1) When proclaimed at its best, Gautama's gospel of universal salvation, free from sacrifice, torture, ritual, and priests, was a revolutionary and amazing doctrine for its time. And it came surprisingly near to being a revival of the Salem gospel. It brought succor to millions of despairing souls, and notwithstanding its grotesque perversion during later centuries, it still persists as the hope of millions of human beings.

94:7.8 (1036.2) Siddhartha taught far more truth than has survived in the modern cults bearing his name. Modern Buddhism is no more the teachings of Gautama Siddhartha than is Christianity th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8. 불교도의 신앙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부다**를 피난처

8. THE BUDDHIST FAITH

94:8.1 (1036.3) To become a Buddhist, one merely

로 삼으며; **불법**(佛法)을 피난처로 삼으며; **형제관계**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방책**(防柵)을 낭송함으로써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됐다

불교는 신화에서 기원되지 않고, 역사적 인물에서 기원됐다. **가우타마**의 추종자들은, 그를 주{主}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 **사스타**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런 초인적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그를, **부다**, 즉 **통달한 존재**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다**라고 불렀다.

가우타마의 원래 복음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기초로 했다:

1. 고난에 관한 고귀한 진리.
2. 고난의 근원.
3. 고난의 극복.
4. 고난을 극복하는 길.

고난의 교리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남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팔중도**(八重道)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바른 통찰, 올바른 열망, 올바른 언변, 올바른 품행, 올바른 생계(生計), 올바른 노력, 올바른 정신 집중, 및 올바른 목상이다. 고난에서 탈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 갈망, 및 애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우타마**의 뜻이 아니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현세의 목표와 물질적 대상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필사적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계획됐다. 동료를 사랑하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신자는 이 물질 세계의 관계를 뛰어 넘어서, 영원한 미래의 실체들을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우타마가 훈계한 도덕 계명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1. 살인하지 말라.
2. 도둑질하지 말라.
3.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
4. 거짓말하지 말라.
5.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몇 가지 추가 계명, 즉 이차적{二次的} 계명도 있었으며, 이를 준행할 것인지는 믿는 자의 재량이었다.

싯타르타는 인간 인격의 불멸성을 거의 믿지 않았으며; 그의 사상은 오직 일종의 기능적 연속성만을 고려했다. 그는 **열반**(涅槃)이라는 교리에 무엇을 포함시키려 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었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동안에 이론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열반을 사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지 않았음을 가리킬 것이다. 열반은 사람을 물질세계에 붙들어 매고 있는 모든 족쇄가

made public profession of the faith by reciting the Refuge: “I take my refuge in the Buddha; I take my refuge in the Doctrine; I take my refuge in the Brotherhood.”

94:8.2 (1036.4) Buddhism took origin in a historic person, not in a myth. Gautama's followers called him Sasta, meaning master or teacher. While he made no superhuman claims for either himself or his teachings, his disciples early began to call him *the enlightened one*, the Buddha; later on, Sakyamuni Buddha.

94:8.3 (1036.5) The original gospel of Gautama was based on the four noble truths:

94:8.4 (1036.6) 1. The noble truths of suffering.

94:8.5 (1036.7) 2. The origins of suffering.

94:8.6 (1036.8) 3. The destruction of suffering.

94:8.7 (1036.9) 4. The way to the destruction of suffering.

94:8.8 (1036.10) Closely linked to the doctrine of suffering and the escape therefrom was the philosophy of the Eightfold Path: right views, aspirations, speech, conduct, livelihood, effort, mindfulness, and contemplation. It was not Gautama's intention to attempt to destroy all effort, desire, and affection in the escape from suffering; rather was his teaching designed to picture to mortal man the futility of pinning all hope and aspirations entirely on temporal goals and material objectives. It was not so much that love of one's fellows should be shunned as that the true believer should also look beyond the associations of this material world to the realities of the eternal future.

94:8.9 (1036.11) The moral commandments of Gautama's preachment were five in number:

94:8.10 (1036.12) 1. You shall not kill.

94:8.11 (1036.13) 2. You shall not steal.

94:8.12 (1036.14) 3. You shall not be unchaste.

94:8.13 (1036.15) 4. You shall not lie.

94:8.14 (1036.16) 5. You shall not drink intoxicating liquors.

94:8.15 (1036.17) There were several additional or secondary commandments, whose observance was optional with believers.

94:8.16 (1036.18) Siddhartha hardly believed in the immortality of the human personality; his philosophy only provided for a sort of functional continuity. He never clearly defined what he meant to include in the doctrine of Nirvana. The fact that it could theoretically be experienced during mortal existence would indicate that it was not viewed as a state of complete annihilation. It implied a

파괴된, 최상의 깨달음과 천상{天上}의 희열이라는 상태를 가리켰으며; 필사 인생의 욕망에 매이지 않고, 끝없이 다시 육신화를 체험한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가우타마의 원래 교훈에 의하면, 신성한 도움은 별도로 하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며; 구원 얻는 신앙, 또는 초인적 능력의 존재에게 하는 기도가 있을 자리가 없다. **가우타마**는 **인도**의 미신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마술적 구원이라는 뻔뻔스런 주장을 사람이 외면하게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는, 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도록, 그리고 달성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험오스럽고 고통스런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후계자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최고의 행복은 바람직한 목표를 충명하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런 성취는 시공우주에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참으로 진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종자들은 간파했다.

싯타르타가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우주가 절대로 공정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필사적 사람이 일찍이 창안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철학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철학은 이상적 인본주의였고, 미신, 마술적 제례식, 및 유령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모든 근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

불교의 원래 복음에서 가장 큰 약점은, 그 복음이 이타적 사회봉사의 종교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불교**의 형제관계는 믿는 자들의 우애 관계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연구하는 선생들의 공동체였다. **가우타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금했고, 그렇게 해서 고위성직자의 성향이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가우타마** 자신은 매우 사교적이었으며; 정말로 그의 삶은 그의 설교보다 훨씬 위대했다.

9. 불교의 전파

불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부다**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번창했다. 그것은 동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교 체계보다 **멜기세덱**의 진리를 더 많이 묘사했다. 그러나 하위_신분계층 군주{君主}였던 **아소카**가 자신을_보호하려고 신봉할 때까지, **불교**는 종교로 퍼져나가지 못했는데, **아소카**는 **멜기세덱**과 **미가엘** 사이에서 **이집트**의 **이크나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집권자 가운데 하나였다. **아소카**는 **불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통해서 큰 **인도**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25년 동안 1만 7천명 이상의 선교사를 훈련시켰고, 알려진 온 세계의 가장 먼 변경지대까지 보냈다. 그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계 절반에서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게 했다. **불교**는 곧 **티벳**, **카슈미르**, **실론**, **버마**, **자바**, **시암**, **고려**{高麗}, **중국**, 및 **일본**에 전파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교**는 **불교**가 대체하거나 증진시킨 것들보다 훨씬 우수한 종교

condition of supreme enlightenment and supernal bliss wherein all fetters binding man to the material world had been broken; there was freedom from the desires of mortal life and deliverance from all danger of ever again experiencing incarnation.

94:8.17 (1037.1) According to the original teachings of Gautama, salvation is achieved by human effort, apart from divine help; there is no place for saving faith or prayers to superhuman powers. Gautama, in his attempt to minimize the superstitions of India, endeavored to turn men away from the blatant claims of magical salvation. And in making this effort, he left the door wide open for his successors to misinterpret his teaching and to proclaim that all human striving for attainment is distasteful and painful. His follower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highest happiness is linked with the intelligent and enthusiastic pursuit of worthy goals, and that such achievements constitute true progress in cosmic self-realization.

94:8.18 (1037.2) The great truth of Siddhartha's teaching was his proclamation of a universe of absolute justice. He taught the best godless philosophy ever invented by mortal man; it was the ideal humanism and most effectively removed all grounds for superstition, magical rituals, and fear of ghosts or demons.

94:8.19 (1037.3) The great weakness in the original gospel of Buddhism was that it did not produce a religion of unselfish social service. The Buddhistic brotherhood was, for a long time, not a fraternity of believers but rather a community of student teachers. Gautama forbade their receiving money and thereby sought to prevent the growth of hierarchal tendencies. Gautama himself was highly social; indeed, his life was much greater than his preachment.

9. THE SPREAD OF BUDDHISM

94:9.1 (1037.4) Buddhism prospered because it offered salvation through belief in the Buddha, the enlightened one. It was more representative of the Melchizedek truths than any other religious system to be found throughout eastern Asia. But Buddhism did not become widespread as a religion until it was espoused in self-protection by the low-caste monarch Asoka, who, next to Ikhnaton in Egyp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civil rulers between Melchizedek and Michael. Asoka built a great Indian empire through the propaganda of his Buddhist missionaries. During a period of twenty-five years he trained and sent forth more than seventeen thousand missionaries to the farthest frontiers of all the known world. In one generation he made Buddhism the dominant religion of one half the world. It soon became established in Tibet,

였다.

불교가 **인도** 원산지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진지한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헌신하고 끈질기게 선교한 감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가우타마**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자신의 신앙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육로의 대상(隊商) 통로에서 당하는 위험에 담대히 맞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지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중국해**의 위험에도 용감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이 **불교**는 더 이상 **가우타마**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으며, 그를 신으로 만든, 초자연적인 것으로 변경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불교**가 원산지인 **인도**에서 멀리 퍼질수록, **불교**는 **가우타마**의 교훈과 더욱 달라졌으며, **불교**가 밀어냈던 종교들과 더욱 비슷해졌다.

후대에 이르자 **불교**는, **중국**에서는 **도교**에, **일본**에서는 **신토**에, 그리고 **티벳**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단순히 시들고 소멸됐다. **불교**는 **브라만교**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이슬람교**에 비굴하게 굴복했으며, 한편 **동양**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는, **가우타마 싯다르타**가 전혀 알지 못했을 제례식으로 퇴화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싯다르타**의 전형적 교훈을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이, **실론**, **버마**, 및 **인도-차이나** 반도에 계속 존재했다. 이것이, 초기의 교리, 즉 반사회적 교리를 따르는 **불교**의 **히나야나** 종파다.

그러나 **인도**에서 붕괴되기 전에도, **히나야나**, 즉 “**소승**(小乘)”을 지지하는 남부의 순수파와는 대조적으로, **가우타마**를 추종하는 **중국인**과 북부 **인도인** 무리는, 구원에 이르는 “**대승**(大乘)” **마하야나** 가르침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마하야나** 신자들은, **불교** 교리에 본래부터 있던 사회적 제한에서 벗어났으며, **불교**의 이 북부 지파는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서 진화했다.

불교는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자라나는 종교인데, 불교가 신봉하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를 많이 보존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평온과 자아_통제를 증진시키고, 침착함과 행복을 증대시키며, 슬픔과 비탄을 많이 줄여준다. 이 사상을 믿는 그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다.

10. 티벳에 있던 종교

멜기세덱 교훈이, **불교**, **힌두교**, **도교**, 및 **그리스도교**와 연합된, 가장 생소한 형태가 **티벳**에서 발견될 수 있다. **불교** 선교사들이 **티벳**에 들어갔

Kashmir, Ceylon, Burma, Java, Siam, Korea, China, and Japan. And generally speaking, it was a religion vastly superior to those which it supplanted or upstepped.

94:9.2 (1037.5) The spread of Buddhism from its homeland in India to all of Asia is one of the thrilling stories of the spiritual devotion and missionary persistence of sincere religionists. The teachers of Gautama's gospel not only braved the perils of the overland caravan routes but faced the dangers of the China Seas as they pursued their mission over the Asiatic continent, bringing to all peoples the message of their faith. But this Buddhism was no longer the simple doctrine of Gautama; it was the miraculized gospel which made him a god. And the farther Buddhism spread from its highland home in India, the more unlike the teachings of Gautama it became, and the more like the religions it supplanted, it grew to be.

94:9.3 (1038.1) Buddhism, later on, was much affected by Taoism in China, Shinto in Japan, and Christianity in Tibet. After a thousand years, in India Buddhism simply withered and expired. It became Brahmanized and later abjectly surrendered to Islam, while throughout much of the rest of the Orient it degenerated into a ritual which Gautama Siddhartha would never have recognized.

94:9.4 (1038.2) In the south the fundamentalist stereotype of the teachings of Siddhartha persisted in Ceylon, Burma, and the Indo-China peninsula. This is the Hinayana division of Buddhism which clings to the early or asocial doctrine.

94:9.5 (1038.3) But even before the collapse in India, the Chinese and north Indian groups of Gautama's followers had begun the development of the Mahayana teaching of the “Great Road” to salvation in contrast with the purists of the south who held to the Hinayana, or “Lesser Road.” And these Mahayanists cast loose from the soci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Buddhist doctrine, and ever since has this northern division of Buddhism continued to evolve in China and Japan.

94:9.6 (1038.4) Buddhism is a living, growing religion today because it succeeds in conserving many of the highest moral values of its adherents. It promotes calmness and self-control, augments serenity and happiness, and does much to prevent sorrow and mourning. Those who believe this philosophy live better lives than many who do not.

10. RELIGION IN TIBET

94:10.1 (1038.5) In Tibet may be found the strangest association of the Melchizedek teachings combined with Buddhism, Hinduism, Taoism, and

을 때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유럽**의 북쪽 부족들 가운데서 발견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미개한 원시 상태에 부딪혔다.

순진한 이 **티베트인**들은 오래된 마술과 주문을 완전히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티베트**에서 행하는 제례식의 종교 예식절차를 조사하면, 머리를 민 사제 단체가 과도하게 발달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방울, 영창(詠唱), 향(香), 행렬, 목주, 형상, 장식품, 그림, 성수(聖水), 화려한 의복, 그리고 정교하게 준비된 성가대를 포함하는 복잡한 제례식을 거행한다. 그들은 엄격한 교의와 정형화 된 신조, 즉 신비로운 제례와 특별한 금식을 행한다. 그들의 계층 제도는, 승려, 여승, 주지, **달라이 라마** 등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천사, 성인, 및 **성모**(聖母)와 신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며 연옥(煉獄)을 믿는다. 그들의 절은 규모가 크고 사원은 웅장하다. 그들은 신성시되는 제례식을 끝없이 반복하고, 그런 예식절차가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도문을 바퀴에 붙이고, 바퀴가 돌아갈 때 탄원했던 것이 응답된다고 믿는다. 현대에 어떤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그들처럼 그토록 많은 종교로부터 그렇게 많은 관례를 준수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런 누적된 예배의식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방해받고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티베트인은 **예수교인**(敎人)의 복음의 단순한 교훈 즉: **하나님**의 아들신분, 사람의 형제관계,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서 계속 상승하는 시민자격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로부터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

11. 불교도의 사상

불교는 기원후 첫 1,000년 동안 **중국**으로 전파됐고, 황인종의 종교 관습에 잘 조화됐다. 그들은 조상을 숭배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됐다. **불교**는, 붕괴되는 **도교**에서 잔존한 제례식 풍습과 곧 혼합됐다. 숭배하는 신전(神殿) 및 일정한 종교 예식절차와 더불어, 새로 합성된 이 종교는 곧, **중국**, **고려**, 및 **일본**의 민족들이 널리 받아들인 종파가 됐다.

가우타마의 추종자들이 그 종파의 전통과 교훈을 왜곡하여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 때까지 **불교**가 세상에 퍼지지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간 생애에 대한 이 신화는, 수많은 기적을 동반했던 것처럼 미화됐는데, **불교**의 북부 복음, 즉 **마하야나** 복음 청취자에게 무척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ianity. When the Buddhist missionaries entered Tibet, they encountered a state of primitive savagery very similar to that which the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found among the northern tribes of Europe.

94:10.2 (1038.6) These simple-minded Tibetans would not wholly give up their ancient magic and charms. Examination of the religious ceremonials of present-day Tibetan rituals reveals an overgrown brotherhood of priests with shaven heads who practice an elaborate ritual embracing bells, chants, incense, processions, rosaries, images, charms, pictures, holy water, gorgeous vestments, and elaborate choirs. They have rigid dogmas and crystallized creeds, mystic rites and special fasts. Their hierarchy embraces monks, nuns, abbots, and the Grand Lama. They pray to angels, saints, a Holy Mother, and the gods. They practice confessions and believe in purgatory. Their monasteries are extensive and their cathedrals magnificent. They keep up an endless repetition of sacred rituals and believe that such ceremonials bestow salvation. Prayers are fastened to a wheel, and with its turning they believe the petitions become efficacious. Among no other people of modern times can be found the observance of so much from so many religions; and it is inevitable that such a cumulative liturgy would become inordinately cumbersome and intolerably burdensome.

94:10.3 (1038.7) The Tibetans have something of all the leading world religions except the simple teachings of the Jesusonian gospel: sonship with God, brotherhood with man, and ever-ascending citizenship in the eternal universe.

11. BUDDHIST PHILOSOPHY

94:11.1 (1038.8) Buddhism entered China in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and it fitted well into the religious customs of the yellow race. In ancestor worship they had long prayed to the dead; now they could also pray for them. Buddhism soon amalgamated with the lingering ritualistic practices of disintegrating Taoism. This new synthetic religion with its temples of worship and definite religious ceremonial soon became the generally accepted cult of the peoples of China, Korea, and Japan.

94:11.2 (1039.1) While in some respects it is unfortunate that Buddhism was not carried to the world until after Gautama's followers had so perverted the traditions and teachings of the cult as to make of him a divine being, nonetheless this myth of his human life, embellished as it was with a multitude of miracles, proved very appealing to the auditors of the northern or Mahayana gospel of Buddhism.

나중에 그의 추종자 가운데 더러는, **석가모니 부다**의 영이, 살아있는 **부다**가 되어 정기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가르쳤는데, 그리하여 **부다** 형상, 사원, 제례식, 그리고 “살아있는 **부다**”라고 사칭하는 자를 막연히 영속시키도록 길을 열어줬다. 따라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위대한 **인도인** 종교는, 그가 그토록 맹렬하게 반대해서 투쟁했던, 그리고 그토록 용맹스럽게 비난했던 바로 그런 예식 풍습과 제례식 주문(呪文)에, 그 자체가 속박됐음을 결국 발견하게 됐다.

불교 사상에서 큰 진보는, 모든 진리의 상대성을 납득함에 있었다. 이런 가설(假說) 장치를 통해서, **불교도**는 자신과 다른 여러 사람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기네 종교 경전들의 상이점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킬 수 있었다. 작은 진리는 나약한 정신을 위한 것이고, 큰 진리는 탁월한 정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이 사상은, **부다**의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사람은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이런 내적 신성(神性)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내주하는 **조울사**에 대한 진리를 **유란시아**의 종교가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싯다르타**가 제창했던 원래의 복음에서 심각한 취약점은, 그의 추종자가 해석했던 바와 같이, 자아를 객관적 실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법으로, 필자자 본성의 모든 한계로부터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시공우주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시공우주 실체와 일체가 되고, 공간에 속박 받고 시간에 제한되는, 에너지, 정신, 및 영으로 이뤄진 유한한 시공우주와 일체가 된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나 **불교** 예식과 표면상의 의식거행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지나가는 지역의 예식과 의식거행들로 인해 심하게 오염됐음에도, 때때로 이 세계의 사고(思考) 및 믿음을 받아들이었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적 삶에서, 이런 퇴화가 일괄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천 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다수는, 절대진리와 **절대자**에 관한 진리를 확인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

절대자에 대한 고등 개념의 진화는, 여러 사고(思考)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논리의 복잡한 행로를 거쳐서 성취됐다. 이 무한성 교리의 향상은, **히브리인** 신학에서 **하나님** 개념이 진화한 것만큼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주들의 **원초적 근원**(根源)을 상상하는 도중에, **불교도**의 정신이 도달하고, 머물고, 거쳐 간 어떤 명료한 수준들이 있었다:

1. **가우타마**의 전설. 그 개념의 밑바닥에는,

94:11.3 (1039.2) Some of his later followers taught that Sakyamuni Buddha's spirit returned periodically to earth as a living Buddha, thus opening the way for an indefinite perpetuation of Buddha images, temples, rituals, and impostor “living Buddhas.” Thus did the religion of the great Indian protestant eventually find itself shackled with those very ceremonial practices and ritualistic incantations against which he had so fearlessly fought, and which he had so valiantly denounced.

94:11.4 (1039.3) The great advance made in Buddhist philosophy consisted in its comprehension of the relativity of all truth. Through the mechanism of this hypothesis Buddhists have been able to reconcile and correlate the divergencies within their own religious scriptur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own and many others. It was taught that the small truth was for little minds, the large truth for great minds.

94:11.5 (1039.4) This philosophy also held that the Buddha (divine) nature resided in all men; that man, through his own endeavors, could attain to the realization of this inner divinity. And this teaching is one of the clearest presentations of the truth of the indwelling Adjusters ever to be made by a Urantian religion.

94:11.6 (1039.5) But a great limitation in the original gospel of Siddhartha, as it was interpreted by his followers, was that it attempted the complete liberation of the human self from all the limitations of the mortal nature by the technique of isolating the self from objective reality. True cosmic self-realization results from identification with cosmic reality and with the finite cosmos of energy, mind, and spirit, bounded by space and conditioned by time.

94:11.7 (1039.6) But though the ceremonies and outward observances of Buddhism became grossly contaminated with those of the lands to which it traveled, this degeneration was not altogether the case in the philosophical life of the great thinkers who, from time to time, embraced this system of thought and belief. Through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many of the best minds of Asia have concentrated upon the problem of ascertaining absolute truth and the truth of the Absolute.

94:11.8 (1039.7) The evolution of a high concept of the Absolute was achieved through many channels of thought and by devious paths of reasoning. The upward ascent of this doctrine of infinity was not so clearly defined as was the evolution of the God concept in Hebrew theology. Nevertheless, there were certain broad levels which the minds of the Buddhists reached, tarried upon, and passed through on their way to the envisioning of the Primal Source of universes:

94:11.9 (1039.8) 1. *The Gautama legend.* At the base

인도의 왕자이며 선지자인 **싯다르타**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 전설은, **불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지는 동안, 신화적인 것으로 변해갔으며, 결국 **가우타마**를 통달한 존재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부가적 속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 다수(多數)의 **부다**. **가우타마**가 **인도**의 민족들에게 왔다면, 아득히 먼 과거에 인류의 종족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선생이 오시는 복을 반드시 받았을 것이고, 아득히 먼 미래에 틀림없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부다**, 즉 무제한이고 무수히 많은 **부다**가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누구든지 --**부다**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3. **절대 부다**. **부다**의 숫자가 무한대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런 거대한 개념을 다시 통합시킬 필요성이 당시 지성인에게 제기됐다. 따라서, 모든 **부다**가 존재하지만, 더 높은 어떤 실체, 즉 무한하고 무조건적 실존인 어떤 **영원한 한분**, 모든 실체의 **절대 근원**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불교**의 **신격** 개념은, 최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가우타마 싯다르타**의 인간적 인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속박해왔던 의인화된 제한조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영원한 부다**라는 이런 최종 생각은 **절대자**, 때로는 무한한 **자존자**(自存者)와도 쉽게 동일시될 수 있다.

이 **절대자 신격** 관념은, **아시아** 민족들의 대중적 호응을 얻은 적이 결코 없었지만, 이 지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과 통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우주관과 조화하도록 만들었다. 절대 **부다** 개념은, 때로는 유사(類似) 인격적이고, 때로는 완전히 비인격적이었다--심지어 무한한 창조 세력이기도 했다. 그런 개념이 철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종교 발달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모습을 닮은 **야훼**조차, 무한히 멀리 있는, **불교** 또는 **브라마교**의 **절대자**보다 더 큰 종교적 가치가 있다.

때로는, **절대자**가 무한한 **자존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굶주린 대중을 위로할 수 없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영원한 생존과 신성한 은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살렘**의 단순한 복음을 듣고 위로받으려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12. 불교의 하나님 개념

불교의 우주론에서 큰 약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인도**와 **중국**의 많은 미신으로 **불교**가 오염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우타마**에 대한 불

of the concept was the historic fact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Siddhartha, the prophet prince of India. This legend grew in myth as it traveled through the centuries and across the broad lands of Asia until it surpassed the status of the idea of Gautama as the enlightened one and began to take on additional attributes.

94:11.10 (1040.1) 2. *The many Buddhas*. It was reasoned that, if Gautama had come to the peoples of India, then, in the remote past and in the remote future, the races of mankind must have been, and undoubtedly would be, blessed with other teachers of truth. This gave rise to the teaching that there were many Buddhas, an unlimited and infinite number, even that anyone could aspire to become one — to attain the divinity of a Buddha.

94:11.11 (1040.2) 3. *The Absolute Buddha*. By the time the number of Buddhas was approaching infinity, it became necessary for the minds of those days to reunify this unwieldy concept. Accordingly it began to be taught that all Buddhas were but the manifestation of some higher essence, some Eternal One of infinite and unqualified existence, some Absolute Source of all reality. From here on, the Deity concept of Buddhism, in its highest form, becomes divorced from the human person of Gautama Siddhartha and casts off from the anthropomorphic limitations which have held it in leash. This final conception of the Buddha Eternal can well be identified as the Absolute, sometimes even as the infinite I AM.

94:11.12 (1040.3) While this idea of Absolute Deity never found great popular favor with the peoples of Asia, it did enable the intellectuals of these lands to unify their philosophy and to harmonize their cosmology. The concept of the Buddha Absolute is at times quasi-personal, at times wholly impersonal — even an infinite creative force. Such concepts, though helpful to philosophy, are not vital to religious development. Even an anthropomorphic Yahweh is of greater religious value than an infinitely remote Absolute of Buddhism or Brahmanism.

94:11.13 (1040.4) At times the Absolute was even thought of as contained within the infinite I AM. But these speculations were chill comfort to the hungry multitudes who craved to hear words of promise, to hear the simple gospel of Salem, that faith in God would assure divine favor and eternal survival.

12. THE GOD CONCEPT OF BUDDHISM

94:12.1 (1040.5) The great weakness in the cosmology of Buddhism was twofold: its contamination with many of the superstitions of India and China and its sublimation of Gautama,

교의 이상화{理想化}, 즉 처음에는 통달한 존재로,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부다로 삼은 것이었다.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많은 인간 철학을 흡수함으로써 수난을 당해 온 것처럼, 불교 역시 인간적 출생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우타마의 교훈은 지나간 2천 500년 동안 계속 진화해 왔다. 계몽된 그리스도교인에게 여호와의 개념이 호렘산의 정령{精靈}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계몽된 불교도에 게 부다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가우타마의 인간 인격이 아니다. 언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를 감상적으로 기억함과 함께, 종교 개념에 있었던 진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절대자와 대조하여, 하나님 개념이 불교에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근원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추종자를 이처럼 구별하던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자{後者}의 이 불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과 절대자라는 이중{二重} 생각이 마침내 무르익었다. 일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세기 한 세기, 료닌, 호넨 쇼닌, 및 신탄의 교훈과 함께, 하나님 개념이 진화했고, 마침내 이 개념은 아미다 부다에 대한 믿음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 신자들 가운데서는, 죽음을 체험한 혼은 궁극 실존 상태인 열반{涅槃}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에 머무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서쪽에 있는 낙원의 하나님, 즉 아미다의 신성한 자비와 사랑의 보살핌을 믿는 신앙으로 새로운 구원이 달성된다고 선포된다. 그들의 사상에서는, 아미다를 믿는 사람은 모든 유한한 필사자의 파악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실체를 굳게 붙잡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에서는, 완전히 자비로운 아미다, 즉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과 순수한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낙원의 숭고한 행복 달성에서 실패하는 고통을 주지 않을 그런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

불교의 큰 장점은, 그 신자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진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 선택의 자유는 유란시아 신앙의 특징이 거의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신탄은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가 돼왔으며; 가우타마 추종자의 옛 선교 정신을 부활시켰고, 선생들을 다른 민족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모든 출처에서 기꺼이 도입하려는 태도는, 기원후 20세기 전반기에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난, 정말로 칭찬받을만한 경향이다.

불교 자체는 20세기의 부흥을 겪고 있다. 불교의 사회적 측면은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크게 증진돼 왔다. 형제관계를 이루는 승려 사제들의 마음에, 배우려는 열망이 다시 불붙었으며, 이 신앙 전반에 이뤄진 교육으로 인해서, 종교 진

first as the enlightened one, and then as the Eternal Buddha. Just as Christianity has suffered from the absorption of much erroneous human philosophy, so does Buddhism bear its human birthmark. But the teachings of Gautama have continued to evolve during the past two and one-half millenniums. The concept of Buddha, to an enlightened Buddhist, is no more the human personality of Gautama than the concept of Jehovah is identical with the spirit demon of Horeb to an enlightened Christian. Paucity of terminology, together with the sentimental retention of olden nomenclature, is often provocative of the failure to understand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evolution of religious concepts.

94:12.2 (1040.6) Gradually the concept of God, as contrasted with the Absolute, began to appear in Buddhism. Its sources are back in the early days of this differentiation of the followers of the Lesser Road and the Greater Road. It was among the latter division of Buddhism that the dual conception of God and the Absolute finally matured. Step by step, century by century, the God concept has evolved until, with the teachings of Ryonin, Honen Shonin, and Shinran in Japan, this concept finally came to fruit in the belief in Amida Buddha.

94:12.3 (1041.1) Among these believers it is taught that the soul, upon experiencing death, may elect to enjoy a sojourn in Paradise prior to entering Nirvana, the ultimate of existence. It is proclaimed that this new salvation is attained by faith in the divine mercies and loving care of Amida, God of the Paradise in the west. In their philosophy, the Amidists hold to an Infinite Reality which is beyond all finite mortal comprehension; in their religion, they cling to faith in the all-merciful Amida, who so loves the world that he will not suffer one mortal who calls on his name in true faith and with a pure heart to fail in the attainment of the supernal happiness of Paradise.

94:12.4 (1041.2) The great strength of Buddhism is that its adherents are free to choose truth from all religions; such freedom of choice has seldom characterized a Urantian faith. In this respect the Shin sect of Japa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ogressive religious groups in the world; it has revived the ancient missionary spirit of Gautama's followers and has begun to send teachers to other peoples. This willingness to appropriate truth from any and all sources is indeed a commendable tendency to appear among religious believer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94:12.5 (1041.3) Buddhism itself is undergoing a twentieth-century renaissance. Through contact with Christianity the social aspects of Buddhism have been greatly enhanced. The desire to learn has been rekindled in the hearts of the monk

화에 새로운 진보가 분명히 이룩될 것이다.

본 기록이 이뤄지던 당시에, **아시아** 대부분은 **불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인도**의 위대한 선생의 제자들이 한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그에게 귀 기울였던 것처럼, 과거의 암흑기 동안 그토록 영웅적으로 잘 견뎌 온 이 고귀한 신앙이, 확장된 시공우주 실체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받아들일 것인가?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하나님**과 **절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상쾌한 자극에, 이 옛 신앙이 다시 한 번 반응할 것인가?

유란시아 전체는, 진화로 기원된 여러 종교와 접촉함으로 열아홉 세기 동안 축적된 교리와 교의 {敎義}에 방해 받지 않은, **미가엘**의 고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체인 **예수**의 복음이, **불교**, **그리스도교**, 및 **힌두교**뿐 아니라, 온갖 신앙을 가진 민족들에게도 제시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priests of the brotherhood, and the spread of education throughout this faith will be certainly provocative of new advances in religious evolution.

94:12.6 (1041.4) At the time of this writing, much of Asia rests its hope in Buddhism. Will this noble faith, that has so valiantly carried on through the dark ages of the past, once again receive the truth of expanded cosmic realities even as the disciples of the great teacher in India once listened to his proclamation of new truth? Will this ancient faith respond once more to the invigorating stimulus of the presentation of new concepts of God and the Absolute for which it has so long searched?

94:12.7 (1041.5) All Urantia is waiting for the proclamation of the ennobling message of Michael, unencumbered by the accumulated doctrines and dogmas of nineteen centuries of contact with the religions of evolutionary origin. The hour is striking for presenting to Buddhism, to Christianity, to Hinduism, even to the peoples of all faiths, not the gospel about Jesus, but the living, spiritual reality of the gospel of Jesus.

94:12.8 (1041.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5편. 레반트의 멜기세덱 교훈

⇨ 094

유란시아 책

09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5편

레반트의 멜기세덱 교훈

섹션

소개

1. 메소포타미아의 살렘 종교
2. 이집트의 초기 종교
3. 도덕 개념의 진화
4. 아메네뮴의 교훈
5. 주목할 만한 이크나톤
6. 이란의 살렘 교리
7. 아라비아의 살렘 교훈

소개

인도가 동부 **아시아**에서 많은 종교와 철학을 태동시켰듯이, **레반트**가 서양 세계의 신앙 본산지였다. **살렘** 선교사들은,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란**, 및 **아라비아**를 거쳐서, 남서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 이 지역들 가운데 일부에서 그들의 교훈이 열매를 맺었으며;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때때로 그들의 실패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의 살렘 종교

기원전 2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는, **셈족속**의 교훈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으며, 두 침입자 집단의 원시적 믿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서부 사막에서 스며든 **베두윈 셈족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온 말타는 야만인이었다.

PAPER 95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LEVA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Religion in Mesopotamia
2. Early Egyptian Religion
3. Evolution of Moral Concepts
4. The Teachings of Amenemope
5. The Remarkable Ikhnaton
6. The Salem Doctrines in Iran
7. The Salem Teachings in Arabia

INTRODUCTION

95:0.1 (1042.1) AS INDIA gave rise to many of the religions and philosophies of eastern Asia, so the Levant was the homeland of the faiths of the Occidental world. The Salem missionaries spread out all over southwestern Asia, through Palestine, Mesopotamia, Egypt, Iran, and Arabia, everywher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some of these lands their teachings bore fruit; in others they met with varying success. Sometimes their failures were due to lack of wisdom, sometimes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1. THE SALEM RELIGION IN MESOPOTAMIA

95:1.1 (1042.2) By 2000 B.C. the religions of Mesopotamia had just about lost the teachings of the Sethites and were larg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imitive beliefs of two groups of invaders, the Bedouin Semites who had filtered in from the western desert and the barbarian horsemen who had come down from the north.

그러나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숭배하는 초기 **아담족속** 사람들의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멜기세덱** 시절에는, 일곱째 날이 가장 불운한 날로 간주됐다. 금기{禁忌}가 지배했으며; 불길한 일곱째 날에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발견한 **메소포타미아**의 금기 사항 가운데 다수를 **팔레스틴**으로 가져왔는데, 일곱째 날, 즉 **샤바툼**을 지키는 **바벨론**의 관례에 기초해서 창시한 것들이었다.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종교를 많이 다듬고 개선하려고 많이 수고했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민족이 영구히 인식{認識}하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가르침은 150년 이상 우위를 차지했지만, 그 다음에는 잡다한 신격들을 믿는 옛 신앙에 점차 굴복하게 됐다.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는데, 한때는 주요 신격들: **벨**, **샤마쉬**, **나부**, **아누**, **에아**, **마르덕**, **싰**, 이렇게 일곱 개로 줄이기도 했다. 새로운 가르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이 신들 가운데 세 가지를 다른 것보다 우위에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삼신{三神}, 즉: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벨**, **에아**, 및 **아누**였다. 또 다른 삼신들이 다른 장소에서 조성됐고, 모두가 **안드족속**과 **수메르인**의 삼자일체 교혼을 연상시켰는데, 세 개의 동심원으로 된 **멜기세덱** 휘장에 대한 **살렘족속**의 믿음에 기초했다.

신{神}들의 어머니이자 성적{性的} 풍요로움의 정령{精靈}인 **이쉬타르**의 인기를, **살렘** 선생은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여신 숭배를 제거하려고 많이 애썼지만, **바벨론인**과 그 이웃은 변장된 형태의 성교{性交} 숭배를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여자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보편적 풍습이 됐으며; 이것을 **이쉬타르**가 요구하는 헌신으로 여겼고, 풍요로움이 이런 성적 희생 행위에 주로 달렸다고 믿었다.

멜기세덱 교혼의 초기 진보는, **키쉬**에 있는 학교의 지도자였던 **나보닷**이, 성전에서 유행하는 매춘 풍습에 대해서 일치된 공격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런 사회 갱신을 이루려는 **살렘** 선교사들의 노력은 실패했으며, 이런 실패로 영망진창이 되면서, 그들의 더 중요한 영적 교훈과 철학 교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살렘의 복음이 이렇게 실패한 후 즉시, **이쉬타르** 종파의 제례식이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이 제례식은 이미, **이집트**에서 **이시스로**, **팔레스틴**에서는 **아스다룻**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북부 부족들에게는 **아스다룻**이라는 이름으로 퍼져있었다. **바벨론** 사제들이 다시 한 번 점성술로

95:1.2 (1042.3) But the custom of the early Adamite peoples in honoring the seventh day of the week never completely disappeared in Mesopotamia. Only, during the Melchizedek era, the seventh day was regarded as the worst of bad luck. It was taboo-ridden; it was unlawful to go on a journey, cook food, or make a fire on the evil seventh day. The Jews carried back to Palestine many of the Mesopotamian taboos which they had found resting on the Babylonian observance of the seventh day, the Shabattum.

95:1.3 (1042.4) Although the Salem teachers did much to refine and uplift the religions of Mesopotamia, they did not succeed in bringing the various peoples to the permanent recognition of one God. Such teaching gained the ascendancy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years and then gradually gave way to the older belief in a multiplicity of deities.

95:1.4 (1042.5) The Salem teachers greatly reduced the number of the gods of Mesopotamia, at one time bringing the chief deities down to seven: Bel, Shamash, Nabu, Anu, Ea, Marduk, and Sin. At the height of the new teaching they exalted three of these gods to supremacy over all others, the Babylonian triad: Bel, Ea, and Anu, the gods of earth, sea, and sky. Still other triads grew up in different localities, all reminiscent of the trinity teachings of the Andites and the Sumerians and based on the belief of the Salemites in Melchizedek's insignia of the three circles.

95:1.5 (1042.6) Never did the Salem teachers fully overcome the popularity of Ishtar, the mother of gods and the spirit of sex fertility. They did much to refine the worship of this goddess, but the Babylonians and their neighbors had never completely outgrown their disguised forms of sex worship. It had become a universal practice throughout Mesopotamia for all women to submit, at least once in early life, to the embrace of strangers; this was thought to be a devotion required by Ishtar, and it was believed that fertility was largely dependent on this sex sacrifice.

95:1.6 (1043.1) The early progress of the Melchizedek teaching was highly gratifying until Nabodad, the leader of the school at Kish, decided to make a concerted attack upon the prevalent practices of temple harlotry. But the Salem missionaries failed in their effort to bring about this social reform, and in the wreck of this failure all their more important spiritual and philosophic teachings went down in defeat.

95:1.7 (1043.2) This defeat of the Salem gospel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great increase in the cult of Ishtar, a ritual which had already invaded Palestine as Ashtoreth, Egypt as Isis, Greece as Aphrodite, and the northern tribes as Astarte. And it was in connection with this revival of the worship of Ishtar that the Babylonian priests turned anew

기울어진 것은 **이쉬타르** 숭배의 이런 부흥과 관련 됐는데; 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지막으로 큰 부흥을 겪었고, 점치는 일이 유행하게 됐으며, 사제계층은 여러 세기 동안 점차 악화됐다.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에게, 만유의 **아버지**이며 **조물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오직 신앙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전파하도록 훈계했었다. 그러나 새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느린 진화를 갑작스런 혁명으로 대체시키려는 실책을 종종 범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는, 그 민족에게 너무 높은 도덕 기준을 제시했으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했고, 그들의 고귀한 대의(大義)는 실패로 끝났다. 명확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만유의 아버지**가 실체라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사회관행을 개선하는, 외견상 가치 있는 목적에 집착하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한 사명은 탈선했고, 좌절과 망각 속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한 세대 만에, **살렘** 본부가 **키쉬**에서 사라졌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파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살렘** 학교들의 잔재는 존속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무리들이, 유일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고, **메소포타미아** 사제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에 맞서 싸웠다.

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다수를 돌 위에 새긴 사람은, 바로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부된 뒤에 활동하던 **살렘** 선교사들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것들을 발견했고, 나중에는 **유대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찬미의 시(詩)를 수집하면서 그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성시(聖詩)들은 **벨_마르덕** 신전에 새겨진 글이 아니며; 이 성시들은 초기 **살렘** 선교사들의 후손의 작품이었고, **바벨론** 사제들이 수집한 마술적인 것과는 뚜렷이 대조가 된다. **욥기**는, **키쉬**에 있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있던 **살렘** 학교의 교훈이 매우 잘 반영된 작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문화 대부분은, **아메넴**과 **이크나톤**의 작품을 통하여 **이집트**를 거쳐서, **히브리인** 문학과 예배의식(禮拜儀式) 속으로 들어갔다. **이집트인**은 사회적 책무에 관한 교훈을 눈에 띄게 보존했는데, 이 교훈은 초기 **안드족속 메소포타미아인**에게서 유래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점령한 후대 **바벨론인**은 대부분 잃어버렸다.

2. 이집트의 초기 종교

원래의 **멜기세덱** 교훈은 **이집트**에서 실제로 가장 깊게 뿌리내렸고, 나중에 거기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나일** 강 유역의 진화 종교는, **늦족**

to stargazing; astrology experienced its last great Mesopotamian revival, fortunetelling became the vogue, and for centuries the priesthood increasingly deteriorated.

95:1.8 (1043.3) Melchizedek had warned his followers to teach about the one God, the Father and Maker of all, and to preach only the gospel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alone. But it has often been the error of the teachers of new truth to attempt too much, to attempt to supplant slow evolution by sudden revolution.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in Mesopotamia raised a moral standard too high for the people; they attempted too much, and their noble cause went down in defeat. They had been commissioned to preach a definite gospel, to proclaim the truth of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y became entangled in the apparently worthy cause of reforming the mores, and thus was their great mission sidetracked and virtually lost in frustration and oblivion.

95:1.9 (1043.4) In one generation the Salem headquarters at Kish came to an end, and the propaganda of the belief in one God virtually ceased throughout Mesopotamia. But remnants of the Salem schools persisted. Small bands scattered here and there continued their belief in the one Creator and fought against the idolatry and immorality of the Mesopotamian priests.

95:1.10 (1043.5) It was the Salem missionaries of the period following the rejection of their teaching who wrote many of the Old Testament Psalms, inscribing them on stone, where later-day Hebrew priests found them during the captivity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them among the collection of hymns ascribed to Jewish authorship. These beautiful psalms from Babylon were not written in the temples of Bel-Marduk; they were the work of the descendants of the earlier Salem missionaries, and they are a striking contrast to the magical conglomerations of the Babylonian priests. The Book of Job is a fairly good reflection of the teachings of the Salem school at Kish and throughout Mesopotamia.

95:1.11 (1043.6) Much of the Mesopotamian religious culture found its way into Hebrew literature and liturgy by way of Egypt through the work of Amenemope and Ikhnaton. The Egyptians remarkably preserved the teachings of social obligation derived from the earlier Andite Mesopotamians and so largely lost by the later Babylonians who occupied the Euphrates valley.

2. EARLY EGYPTIAN RELIGION

95:2.1 (1043.7) The original Melchizedek teachings really took their deepest root in Egypt, from where they subsequently spread to Europe. The evolutionary religion of the Nile valley was

속과 **아담족속** 그리고 후대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안드족속** 민족 가운데 우세한 종족들이 들어옴으로써 주기적으로 증대됐다. 때로는, **이집트**의 민간 경영자 가운데 다수가 **수메르인**이었다. 이 시기에 세계 인종들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섞인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유라시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혼합된 유형의 종교 철학이 조성됐고, 그것은 **나일** 강 유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유대인**은 세상 창조에 대한 관념 대부분을 **바벨론인**으로부터 흡수했으며, 한편 신성한 **섭리** 개념은 **이집트인**으로부터 도입했다.

살렘 교훈에 대해서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호의적이었던 것은, 철학 또는 종교 성향보다 정치와 도덕 성향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각 부족 지도자는, 권좌를 쟁취한 후에, 자기 부족의 신이 다른 모든 신의 원본 신격이며 창조자라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왕조를 영속시키려고 애썼다. **이집트인**은 이런 식으로 초월신 관념에 점점 익숙해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주를 창조한 **신격**의 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됐다. 일신교 관념은 **이집트**에서 여러 세기 동안 오락가락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토대를 이뤘지만, 진화하는 다신론{多神論} 개념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다.

이집트인은 자연 신들을 오랜 세월 숭배해 왔으며; 더 현저히, 수십 개로 분리된 각 부족마다 특별한 집단 신, 즉 하나는 황소를, 하나는 사자를, 또 하나는 수양을, 그런 식으로 숭배했다. 훨씬 전에는 그들도 **아메리카 원주민**과 매우 흡사한, 토tem을 섬기는 부족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집트인**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놓인 시신이 소다 성분을 함유한 모래 작용으로 인해 보호되는 반면--즉 미라가 되는 반면--, 벽돌로 지은 무덤에 장사된 것은 부패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관찰이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이끌었고, 결국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풍습을 나중에 낳게 했다. **이집트인**은, 시신을 보존함으로써 그가 미래의 생애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시체가 부패한 후 먼 훗날에도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시체 옆에 매장용 조각품을 뒀고, 관 위에도 비슷한 모습을 새겼다. 이런 매장용 조각상 만들기가, **이집트**의 예술을 크게 개선했다.

이집트인은 무덤이 시신을 지켜주고, 그 결과로 사후{死後}의 생존을 쾌적하게 해준다는 신념을 여러 세기 동안 간직했다. 마술 풍습의 후대 진화는, 인생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담을 줬지만, 무덤을 믿는 종교로부터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출했다. 사제들은, “지하 세계에서 사람의 심장을 빼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마법의 문장을 관{棺}에 새기려고 했다. 곧 이런 다양한 내용의 마법 문장이 **사자의 서**{死者의 書}로 수집되어 보존됐다. 그러나 **나일** 강 유

periodically augmented by the arrival of superior strains of Nodite, Adamite, and later Andite peoples of the Euphrates valley. From time to time, many of the Egyptian civil administrators were Sumerians. As India in these days harbored the highest mixture of the world races, so Egypt fostered the most thoroughly blended type of religious philosophy to be found on Urantia, and from the Nile valley it spread to many parts of the world. The Jews received much of their idea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from the Babylonians, but they derived the concept of divine Providence from the Egyptians.

95:2.2 (1044.1) It was political and moral, rather than philosophic or religious, tendencies that rendered Egypt more favorable to the Salem teaching than Mesopotamia. Each tribal leader in Egypt, after fighting his way to the throne, sought to perpetuate his dynasty by proclaiming his tribal god the original deity and creator of all other gods. In this way the Egyptians gradually got used to the idea of a supergod, a steppingstone to the later doctrine of a universal creator Deity. The idea of monotheism wavered back and forth in Egypt for many centuries, the belief in one God always gaining ground but never quite dominating the evolving concepts of polytheism.

95:2.3 (1044.2) For ages the Egyptian peoples had been given to the worship of nature gods; more particularly did each of the two-score separate tribes have a special group god, one worshipping the bull, another the lion, a third the ram, and so on. Still earlier they had been totem tribes, very much like the Amerinds.

95:2.4 (1044.3) In time the Egyptians observed that dead bodies placed in brickless graves were preserved — embalmed — by the action of the soda-impregnated sand, while those buried in brick vaults decayed. These observations led to those experiments which resulted in the later practice of embalming the dead. The Egyptians believed that preservation of the body facilitated one's passage through the future life. That the individual might properly be identified in the distant future after the decay of the body, they placed a burial statue in the tomb along with the corpse, carving a likeness on the coffin. The making of these burial statues led to great improvement in Egyptian art.

95:2.5 (1044.4) For centuries the Egyptians placed their faith in tombs as the safeguard of the body and of consequent pleasurable survival after death. The later evolution of magical practices, while burdensome to lif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most effectually delivered them from the religion of the tombs. The priests would inscribe the coffins with charm texts which were believed to be protection against a “man's having his heart taken away from him in the nether world.”

역에서 마법 제례식은, 당시 제례식이 흔치않게 도달하는 정도까지, 일찍부터 양심과 성품의 분야와 관련됐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받는 것은 정교한 무덤보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理想}에 달려 있었다.

이 시대의 미신은,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침 뱉기가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잘 설명되는데, 이 관념은 **이집트**에서 기원됐고, 거기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전파됐다. **호루스**와 **셀**이 전투를 벌이는 전설에 의하면, 그 젊은 신이 자기 눈을 잃었지만, **셀**을 정복한 후에, 현명한 신 **소드**가 상처에 침을 뱉어 치료함으로써 이 눈을 회복시켰다.

이집트인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존경받던 혼의 생존을 나타낸다고 오랫동안 믿었으며; 다른 생존자들은 태양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고 생각했다. 어떤 기간에는, 태양 공경이 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되기도 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경사진 출입 통로가 똑바로 **북극성**을 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혼이 무덤에서 깨어났을 때, 정지된 그곳으로 똑바로 가서, 왕들의 거주지라고 생각되는 정지된 그 별의 별자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하려 했다.

태양의 비스듬한 광선이 구름 속에서 틈새를 통해서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것이, 왕과 기타 의로운 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천상{天上}의 계단이 내려오는 징조라고 믿었다. **“페피 왕이 그의 발밑에 층계를 이루도록 광채{光彩}를 내려뜨렸고, 그것을 밝고 어머니에게 올라가려 했다.”**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집트인**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난 종교를 소유했다. 그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혼이 마술 처방으로 알맞게 무장된다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피할 수 있고, **오시리스**의 재판실로 갈 수 있으며, 거기서 “살인, 약탈, 거짓말, 간음, 도둑질, 이기심{利己心}”의 죄가 없다고 판명되면, 행복의 세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혼이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다고 판명되면, 지옥으로 간다고, 즉 **삼키는 여신**에게 위탁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믿음과 비교할 때, 미래의 생애에 대한 비교적 진보된 개념이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저 세상에서 심판 받는다는 개념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신학으로 전래됐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 시편 문서**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집트인**이 바로 그 성시를 기록했다.

3. 도덕 개념의 진화

Presently a diverse assortment of these magical texts was collected and preserved as The Book of the Dead. But in the Nile valley magical ritual early became involved with the realms of conscience and character to a degree not often attained by the rituals of those days. And subsequently these ethical and moral ideals, rather than elaborate tombs, were depended upon for salvation.

95:2.6 (1044.5) The superstitions of these times are well illustrated by the general belief in the efficacy of spittle as a healing agent, an idea which had its origin in Egypt and spread therefrom to Arabia and Mesopotamia. In the legendary battle of Horus with Set the young god lost his eye, but after Set was vanquished, this eye was restored by the wise god Thoth, who spat upon the wound and healed it.

95:2.7 (1044.6) The Egyptians long believed that the stars twinkling in the night sky represented the survival of the souls of the worthy dead; other survivors they thought were absorbed into the sun. During a certain period, solar veneration became a species of ancestor worship. The sloping entrance passage of the great pyramid pointed directly toward the Pole Star so that the soul of the king, when emerging from the tomb, could go straight to the stationary and established constellations of the fixed stars, the supposed abode of the kings.

95:2.8 (1045.1) When the oblique rays of the sun were observed penetrating earthward through an aperture in the clouds, it was believed that they betokened the letting down of a celestial stairway whereon the king and other righteous souls might ascend. “King Pepi has put down his radiance as a stairway under his feet whereon to ascend to his mother.”

95:2.9 (1045.2) When Melchizedek appeared in the flesh, the Egyptians had a religion far above that of the surrounding peoples. They believed that a disembodied soul, if properly armed with magic formulas, could evade the intervening evil spirits and make its way to the judgment hall of Osiris, where, if innocent of “murder, robbery, falsehood, adultery, theft, and selfishness,” it would be admitted to the realms of bliss. If this soul were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it would be consigned to hell, to the Devouress. And this was, relatively, an advanced concept of a future life in comparison with the beliefs of many surrounding peoples.

95:2.10 (1045.3) The concept of judgment in the hereafter for the sins of one's life in the flesh on earth was carried over into Hebrew theology from Egypt. The word judgment appears only once in the entire Book of Hebrew Psalms, and that particular psalm was written by an Egyptian.

3. EVOLUTION OF MORAL CONCEPTS

안드족속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주로 유래했고, **히브리인**과 **그리스인**을 통해서 그 후의 문명에 많이 전수됐지만, **이집트인**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나일** 강 유역에서 순수한 진화 발전으로 발생했다. **안드족속**에서 기원된 많은 진리와 문화가 수입됐음에도, **미가엘**의 증여가 있기 전에 다른 어느 제한된 지역에서도든지 비슷하게 자연스런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더 도덕적인 문화가, **이집트**에서 순전한 인간적 발전으로 진화했다.

도덕의 진화는 계시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다. 고귀한 도덕 개념이, 사람 자신의 체험에서 유래될 수 있다. 신성한 영이 사람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가치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생활에서 시공우주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런 자연스런 양심 및 성품의 진화는, 고대에 두 번째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후대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살렘**의 **멜기세덱** 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도래함으로써 증대되기도 했다.

살렘의 복음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정의, 공정성, 및 탐욕 회피 등을 가르쳤다. **히브리인** 경전이 기록되기 3천 년 전에, **이집트인**의 금언{金言}은 이랬다: “정의를 표준으로 삼는 사람;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 출세한다.” 그들은 친절함, 온화함, 및 분별력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위대했던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의 메시지는: “바르게 행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이집트인**의 세 가지 척도는, **진리_응보_정의**였다. **유란시아**의 순전히 인간적인 모든 종교 중에서, **나일** 강 유역에서 한때 있었던 이런 인본주의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상{理想}과 도덕적 위엄을 능가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진화하는 윤리 개념과 도덕적 이상의 토양에서, **살렘** 종교의 잔존{殘存} 교리가 번성했다. 선과 악의 개념은, 이런 말씀을 믿는 민족의 마음속에서 이미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죄 있는 자는 죽음을 받는다.” “사랑 받는 일을 행하는 자는 평안하며; 미움 받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나일** 강 유역의 거주민은 후대의 옳고 그름--곧 선과 악--의 개념을 미처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새로 생겨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 세기 동안 살았다.

이집트는, 지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그렇게 영적이지는 못했다. 6천 년 동안에 겨우 네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집트인** 가운데서 출현했다. 그들은 **아메넬**을 한동안 따랐고; **오크반**을 죽였으며; **이크나톤**을 짧은 한 세대 동안 마지못해서 인정했고; **모세**를 거절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살렘**의 교훈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리고 후대에는 **요셉**이, 엄청난 영향력을

95:3.1 (1045.4) Although the culture and religion of Egypt were chiefly derived from Andite Mesopotamia and largely transmitted to subsequent civilizations through the Hebrews and Greeks, much, very much, of the social and ethical idealism of the Egyptians arose in the valley of the Nile as a purely evolutionary development. Notwithstanding the importation of much truth and culture of Andite origin, there evolved in Egypt more of moral culture as a purely human development than appeared by similar natural techniques in any other circumscribed area prior to the bestowal of Michael.

95:3.2 (1045.5) Moral evolution is not wholly dependent on revelation. High moral concepts can be derived from man's own experience. Man can even evolve spiritual values and derive cosmic insight from his personal experiential living because a divine spirit indwells him. Such natural evolutions of conscience and character were also augmented by the periodic arrival of teachers of truth, in ancient times from the second Eden, later on from Melchizedek's headquarters at Salem.

95:3.3 (1045.6) Thousands of years before the Salem gospel penetrated to Egypt, its moral leaders taught justice, fairness, and the avoidance of avarice. Three thousand years before the Hebrew scriptures were written, the motto of the Egyptians was: “Established is the man whose standard is righteousness; who walks according to its way.” They taught gentleness, moderation, and discretion. The message of one of the great teachers of this epoch was: “Do right and deal justly with all.” The Egyptian triad of this age was Truth-Justice-Righteousness. Of all the purely human religions of Urantia none ever surpassed the social ideals and the moral grandeur of this onetime humanism of the Nile valley.

95:3.4 (1045.7) In the soil of these evolving ethical ideas and moral ideals the surviving doctrines of the Salem religion flourished.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found ready response in the hearts of a people who believed that “Life is given to the peaceful and death to the guilty.” “The peaceful is he who does what is loved; the guilty is he who does what is hated.” For centuries the inhabitants of the Nile valley had lived by these emerging ethical and social standards before they ever entertained the later concepts of right and wrong — good and bad.

95:3.5 (1046.1) Egypt was intellectual and moral but not overly spiritual. In six thousand years only four great prophets arose among the Egyptians. Amenemope they followed for a season; Okhban they murdered; Ikhnaton they accepted but halfheartedly for one short generation; Moses they rejected. Again was it political rather than religious circumstances that made it easy for Abraham and,

이집트 전역에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종교 상황보다 정치 상황이었다. 그러나 **살렘** 선교사가 처음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주민의 변경된 도덕 표준과 혼합되어 진화된, 상당히 윤리적인 이 문화를 접했다. **나일** 강 유역의 이 초기 선생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즉 **신격**의 소리라고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4. 아메네몰의 교훈

때가 되자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더러는 **아메네몰**이라고 칭하는 한 선생이 출현했다. 이 선각자{先覺者}는, 양심을 강화시켜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고 지점으로 끌어 올렸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며, 태양 신격에게 요청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다.

아메네몰은, 부유함과 행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개념은 나중에 나타난 **히브리인** 사상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쳤다. 고귀한 이 선생은, **하나님**을 인식{認識}하는 것이 모든 행위에서 결정적 요소라고 믿었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책무를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 현자{賢者}의 교훈은, 그 후에 **히브리어**로 번역됐고, **구약 성경**이 축소돼서 기록되기 훨씬 전에 그 민족의 신성시되는 책이 됐다. 이 선한 사람의 주요 훈계는, 위탁된 정부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할 것을 아들에게 훈계하는 일과 관련됐으며, 먼 옛날의 이런 고상한 정서는 현대의 어떤 정치가에게든지 명예가 될 것이다.

나일 강에 있던 이 현자는,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고 가르쳤다. 그의 위대한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행동”으로 향하라고 훈계했다.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이 소유하지만 **하나님**이 나눠주신다고 가르쳤다. 그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번역됐고, **구약 성경**에서 **잠언**의 사상을 결정지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차후에 **헬라**의 모든 종교 철학을 그럴싸하게 꾸몄다.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인 **필로**는 그 **지혜서** 사본{寫本}을 갖고 있었다.

아메네몰은, 진화로 생긴 윤리와 계시된 도덕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자신이 기록한 문서를 통해서, **히브리인**과 **그리스인** 양쪽에 그것들을 전해줬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종교 선생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문명의 성장에서 두 가지 중대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후대의 사상을 물들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히브리인** 가운데서는 **서양** 종교 신념의 정점으로 진화됐고, **그리스인** 가운데서는 **유럽**의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는 순전히 철학적인 사상으로 발전했

later on, for Joseph to exert great influence throughout Egypt in behalf of the Salem teachings of one God. But when the Salem missionaries first entered Egypt, they encountered this highly ethical culture of evolution blended with the modified moral standards of Mesopotamian immigrants. These early Nile valley teachers were the first to proclaim conscience as the mandate of God, the voice of Deity.

4. THE TEACHINGS OF AMENEMOPE

95:4.1 (1046.2) In due time there grew up in Egypt a teacher called by many the “son of man” and by others Amenemope. This seer exalted conscience to its highest pinnacle of arbitrament between right and wrong, taught punishment for sin, and proclaimed salvation through calling upon the solar deity.

95:4.2 (1046.3) Amenemope taught that riches and fortune were the gift of God, and this concept thoroughly colored the later appearing Hebrew philosophy. This noble teacher believed that God-consciousness was the determining factor in all conduct; that every moment should be lived in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and responsibility to, God. The teachings of this sage were subsequently translated into Hebrew and became the sacred book of that people long before the Old Testament was reduced to writing. The chief preachment of this good man had to do with instructing his son in uprightness and honesty in governmental positions of trust, and these noble sentiments of long ago would do honor to any modern statesman.

95:4.3 (1046.4) This wise man of the Nile taught that “riches take themselves wings and fly away” — that all things earthly are evanescent. His great prayer was to be “saved from fear.” He exhorted all to turn away from “the words of men” to “the acts of God.” In substance he taught: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His teachings, translated into Hebrew, determined the philosophy of the Old Testament Book of Proverbs. Translated into Greek, they gave color to all subsequent Hellenic religious philosophy. The later Alexandrian philosopher, Philo, possessed a copy of the Book of Wisdom.

95:4.4 (1046.5) Amenemope functioned to conserve the ethics of evolution and the morals of revelation and in his writings passed them on both to the Hebrews and to the Greeks. He was not the greatest of the religious teachers of this age, but he was the most influential in that he colored the subsequent thought of two vital links in the growth of Occidental civilization — the Hebrews, among whom evolved the acme of Occidental religious faith, and the Greeks, who developed pure

다.

히브리인 잠언 가운데, 15_장, 17_장, 20_장, 및 22_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아메네뎀의 지혜서**에서 거의 글자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히브리인 시편**에서 1편은 **아메네뎀**이 쓴 것이며, **이크나톤**의 교훈의 핵심(核心)이다.

5. 주목할 만한 이크나톤

이집트인이면서 **살렘족속**이었던 한 치료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왕족 가문의 한 여자가 **멜기세덱**의 교훈을 신봉했을 때, **아메네뎀**의 교훈은 **이집트인** 정신 속에서 지배력을 서서히 잃고 있었다. 이 여자는 **이집트**의 **바로인** 자기 아들 **이크나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육신을 입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이크나톤**만큼 **살렘**의 계시된 종교 개념을 그토록 놀라운 정도로 분명하게 간직하지는 못했다. 어떤 면에서, 젊은 이 **이집트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적 쇠퇴가 증대되던 이 시기 동안에, 그는 **이집트**에서 **엘 엘리온**,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교리를 존속시켰고, 이처럼 철학적 일신교의 경로를 유지했으며, 이것은 당시에, 장차 **미가엘**의 증여를 위한 종교적 배경에 지극히 중요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 중에서도, 이런 업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게 했고, 거기서 **이크나톤**의 영적 후계자 가운데 일부가 그를 만나고,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신성한 사명의 어떤 국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는, **히브리인** 종족 세계와 **이집트** 왕족 가문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으며; **이크나톤**이 **모세**의 융통성과 역량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천재성과 놀라운 종교 지도력을 조화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집트**는 그 시대에 유일신 개념을 갖는 위대한 국가가 됐을 것이며; 그렇게 됐다면, **예수**께서 그의 인간 생애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이집트**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체 역사에서 어떤 왕도, 이 비범한 **이크나톤**처럼, 국가 전체를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옮겨가는 일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이 젊은 왕은 가장 놀랄만한 결단력으로 과거를 청산했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떠났으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전체 민족을 위해서 새 예술과 문학을 창출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설립했다. 다시 말해서,

philosophic thought to its greatest European heights.

95:4.5 (1046.6) In the Book of Hebrew Proverbs, chapters fifteen, seventeen, twenty, and chapter twenty-two, verse seventeen, to chapter twenty-four, verse twenty-two, are taken almost verbatim from Amenemope's Book of Wisdom. The first psalm of the Hebrew Book of Psalms was written by Amenemope and is the heart of the teachings of Ikhnaton.

5. THE REMARKABLE IKHNATON

95:5.1 (1047.1) The teachings of Amenemope were slowly losing their hold on the Egyptian mind when, through the influence of an Egyptian Salemite physician, a woman of the royal family espoused the Melchizedek teachings. This woman prevailed upon her son, Ikhnaton, Pharaoh of Egypt, to accept these doctrines of One God.

95:5.2 (1047.2) Since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in the flesh, no human being up to that time had possessed such an amazingly clear concept of the revealed religion of Salem as Ikhnaton. In some respects this young Egyptian king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persons in human history. During this time of increasing spiritual depression in Mesopotamia, he kept alive the doctrine of El Elyon, the One God, in Egypt, thus maintaining the philosophic monotheistic channel which was vital to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then future bestowal of Michael. And it was in recognition of this exploit, among other reasons, that the child Jesus was taken to Egypt, where some of the spiritual successors of Ikhnaton saw him and to some extent understood certain phases of his divine mission to Urantia.

95:5.3 (1047.3) Moses, the greatest character between Melchizedek and Jesus, was the joint gift to the world of the Hebrew race and the Egyptian royal family; and had Ikhnaton possessed the versatility and ability of Moses, had he manifested a political genius to match his surprising religious leadership, then would Egypt have become the great monotheistic nation of that age; and if this had happened, it is barely possible that Jesus might have lived the greater portion of his mortal life in Egypt.

95:5.4 (1047.4) Never in all history did any king so methodically proceed to swing a whole nation from polytheism to monotheism as did this extraordinary Ikhnaton. With the most amazing determination this young ruler broke with the past, changed his name, abandoned his capital, built an entirely new city, and created a new art and literature for a whole people. But he went too fast; he built too much, more than could stand when he had gone. Again, he failed to provide for the

그는 자기 민족의 물질적 안정과 번영을 마련하기에 실패했는데, 나중에 역경과 고난이 **이집트인**에게 몰려왔을 때, 그 모든 것은 그의 종교 교훈에 대항해서 불리하게 반응했다.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통찰력을 지녔고 무척 한결같았던 이 사람이, 만일 **모세**의 정치적인 현명함을 가졌더라면, 그는 **서양** 세계에서 종교 진화와 진리 계시의 역사 전체를 바꿨을지도 모른다. 그는 일생 동안 사제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개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네 종파를 비밀리에 유지시켰고, 젊은 왕이 세력을 잃자마자 행동을 재개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에 세워진 일신교와, **이집트**가 나중에 겪은 모든 분쟁 요소를, 재빨리 결합시켰다.

이크나톤은 매우 현명하게도, 태양_신을 가장해서 일신교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모든 신을 흡수해서 태양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경배에 접근해 보려는 이 결정은, **살렘 족속** 치료사가 준 조언 때문이었다. **이크나톤**은, **신격**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관해서 당시에 존재하던 **아톤** 신앙의 일반화된 교리를 취해서 한 종교를 창시했는데, 이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하고 경건한 관계를 인정했다.

이크나톤은, 외견상으로는 태양_신인 **아톤**을 경배하는 동시에, 동역자들로 하여금 위장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즉 **아톤**의 창조자와 만유의 지존하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할 만큼 매우 현명했다. 선생이면서 왕이었던 이 젊은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주해서(註解書)를 썼고, 그 책은 31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권력을 다시 잡은 사제들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또한 **이크나톤**은 137편의 찬송시를 썼으며, 그 가운데 열두 개는 현재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존돼 있고, **히브리인**이 쓴 것처럼 돼있다.

이크나톤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주는 최고의 말씀은 “정의”였고, 그는 옳게 행하는 개념을 신속하게 확장시켜서 국가의 윤리뿐 아니라 국제 윤리까지 포함시켰다. 이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인 경건성을 보였고, 지성 있는 더 많은 남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참된 열망이 특징을 이뤘다. 그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것은, 어떤 **이집트인**에게든지 율법 앞에서 전혀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집트**의 가족생활은, 도덕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했으며, 후대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뛰어난 가족생활에 감화를 줬다.

이크나톤이 제시한 복음의 치명적 결점은, 거기에 담긴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아톤**이 **이집트**뿐 아니라 또한 “온 세계, 사람과 짐승, 및 이 **이집트** 땅 외에 모든 이방 나라, 심지어 **시리아**와 **쿠시**도 창조하신 분이요, 그가 만물을 제 자리에 두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가르침이었다. 이런

material stability and prosperity of his people, all of which reacted unfavorably against his religious teachings when the subsequent floods of adversity and oppression swept over the Egyptians.

95:5.5 (1047.5) Had this man of amazingly clear vision and extraordinary singleness of purpose had the political sagacity of Moses, he would have changed the whol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and the revelation of truth in the Occidental world. During his lifetime he was able to curb the activities of the priests, whom he generally discredited, but they maintained their cults in secret and sprang into action as soon as the young king passed from power; and they were not slow to connect all of Egypt's subsequent troubles with the establishment of monotheism during his reign.

95:5.6 (1047.6) Very wisely Ikhnaton sought to establish monotheism under the guise of the sun-god. This decision to approach the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by absorbing all gods into the worship of the sun was due to the counsel of the Salemite physician. Ikhnaton took the generalized doctrines of the then existent Aton faith regarding the fatherhood and motherhood of Deity and created a religion which recognized an intimate worshipful relation between man and God.

95:5.7 (1048.1) Ikhnaton was wise enough to maintain the outward worship of Aton, the sun-god, while he led his associates in the disguised worship of the One God, creator of Aton and supreme Father of all. This young teacher-king was a prolific writer, being author of the exposition entitled “The One God,” a book of thirty-one chapters, which the priests, when returned to power, utterly destroyed. Ikhnaton also wrote one hundred and thirty-seven hymns, twelve of which are now preserved in the Old Testament Book of Psalms, credited to Hebrew authorship.

95:5.8 (1048.2) The supreme word of Ikhnaton's religion in daily life was “righteousness,” and he rapidly expanded the concept of right doing to embrace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ethics. This was a generation of amazing personal piety and was characterized by a genuine aspiration among the more intelligent men and women to find God and to know him. In those days social position or wealth gave no Egyptian any advantage in the eyes of the law. The family life of Egypt did much to preserve and augment moral culture and was the inspiration of the later superb family life of the Jews in Palestine.

95:5.9 (1048.3) The fatal weakness of Ikhnaton's gospel was its greatest truth, the teaching that Aton was not only the creator of Egypt but also of the “whole world, man and beasts, and all the foreign lands, even Syria and Kush, besides this land of Egypt. He sets all in their place and

신격 개념은 고상하고 숭고했지만, 민족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 국제 종교를 가졌다는 감상은, 전쟁터에서 **이집트** 군인의 사기를 높여주지 못한 반면, 젊은 왕과 그의 새로운 종교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사제들에게 마련해 줬다. 그는 후대의 **히브리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격** 개념을 소유했지만, 국가를 세우는 자의 목적에 소용되기에는 너무 앞선 것이었다.

일신교의 이상이 **이크나톤**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많은 집단의 정신 속에 지속됐다. **이크나톤**의 사위는 사제들을 따라가서 다시 옛 신들을 숭배했고, 자기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고쳤다. 수도는 다시 **데베**로 돌아갔고, 사제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 **이집트** 전체의 7분의 1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며, 바로 이 계층의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대담하게 왕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제들이 일신교의 물결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점차 자기 신들을 합병시키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신들의 계통은 점점 축소됐다. **이크나톤**은 하늘의 불타는 원반을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시켰고, 이 관념은 젊은 개혁자가 죽고 한참 지난 후에도, 사람의 마음, 심지어 사제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일신교 개념은 **이집트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동일한 그 신성한 **아버지**, 즉 **이크나톤**이 모든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토록 열광적으로 전파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등장할 때까지도 존속했다.

이크나톤의 교리의 취약점은, 오직 교육 받은 **이집트인**만이 그의 교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보된 종교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일반인은, 실제로 그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과 재난의 신(神)인 **셀**의 손에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가,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시스**와 그 배우자 **오시리스**에 대한 옛 숭배로 사제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불멸한다는 가르침은 **이집트인**에게 너무 진취적이었다. 오직 왕과 부자들만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해서, 왕과 부자들의 시신을 그토록 신중하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 속에 보존했다. 그러나 **이크나톤**이 가르쳤던 일반 구원과 부활이 결국 설득력을 갖게 됐고, 심지어 후대의 **이집트인**은 말을 못하는 동물도 생존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백성에게 강요하려는 이 **이집트**의 통치자의 노력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듯이 보였을지라도, 그의 작품의 영향이 **팔레스틴**과 **그리스** 양쪽에서 존속됐다는 사

provides all with their needs.” These concepts of Deity were high and exalted, but they were not nationalistic. Such sentiments of internationality in religion failed to augment the morale of the Egyptian army on the battlefield, while they provided effective weapons for the priests to use against the young king and his new religion. He had a Deity concept far above that of the later Hebrews, but it was too advanced to serve the purposes of a nation builder.

95:5.10 (1048.4) Though the monotheistic ideal suffered with the passing of Ikhnaton, the idea of one God persisted in the minds of many groups. The son-in-law of Ikhnaton went along with the priests, back to the worship of the old gods, changing his name to Tutankhamen. The capital returned to Thebes, and the priests waxed fat upon the land, eventually gaining possession of one seventh of all Egypt; and presently one of this same order of priests made bold to seize the crown.

95:5.11 (1048.5) But the priests could not fully overcome the monotheistic wave. Increasingly they were compelled to combine and hyphenate their gods; more and more the family of gods contracted. Ikhnaton had associated the flaming disc of the heavens with the creator God, and this idea continued to flame up in the hearts of men, even of the priests, long after the young reformer had passed on. Never did the concept of monotheism die out of the hearts of men in Egypt and in the world. It persisted even to the arrival of the Creator Son of that same divine Father, the one God whom Ikhnaton had so zealously proclaimed for the worship of all Egypt.

95:5.12 (1048.6) The weakness of Ikhnaton's doctrine lay in the fact that he proposed such an advanced religion that only the educated Egyptians could fully comprehend his teachings. The rank and file of the agricultural laborers never really grasped his gospel and were, therefore, ready to return with the priests to the old-time worship of Isis and her consort Osiris, who was supposed to have been miraculously resurrected from a cruel death at the hands of Set, the god of darkness and evil.

95:5.13 (1049.1) The teaching of immortality for all men was too advanced for the Egyptians. Only kings and the rich were promised a resurrection; therefore did they so carefully embalm and preserve their bodies in tombs against the day of judgment. But the democracy of salvation and resurrection as taught by Ikhnaton eventually prevailed, even to the extent that the Egyptians later believed in the survival of dumb animals.

95:5.14 (1049.2) Although the effort of this Egyptian ruler to impose the worship of one God upon his people appeared to fail,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 repercussions of his work persisted for

실과, 그리하여 **나일** 강의 진화 문화와 **유프라테스** 강의 계시 종교가 혼합된 것을 나중에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대행자 역할을 **이집트**가 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돼야 할 것이다.

나일 강 유역에서 도덕적 발전과 영적 성숙이 이뤄진 이 위대한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인**의 민족 생활이 시작될 무렵에 급속도로 소멸했으며, 그 후에 이 **베두원** 사람들은, **이집트**에 머문 결과로 이런 교훈 가운데 다수를 가져갔고, **이크나톤**의 교리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 속에 지속시켰다.

6. 이란의 살렘 교리

일 부 **멜기세덱** 선교사가, **팔레스틴**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거대한 **이란** 평원으로 들어갔다. **살렘** 선생들은, 500년 넘는 동안 **이란**에서 일을 진행시켰고, 국가 전체가 **멜기세덱** 종교로 기울어지게 됐을 때, 통치자들이 바뀌게 되어 갑자기 격심한 박해를 당하게 됐고, 이것이 **살렘** 종파의 일신교 교훈을 실제로 중단시켰다. **아브라함**의 계약에 관한 교리는 **페르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는데, 기원전 6세기경, 도덕 문예 부흥이 일어나던 그 중대한 세기에, **조로아스터**가 나타나서, 꺼져가는 **살렘**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듯이 보였다.

이 새로운 종교 창시자는 모험심 강한 씩씩한 젊은이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처음 순례하러 갔다가 --다른 여러 가지 전승과 함께-- **캘리개스차**와 **루시퍼** 반역에 관한 전승을 배우게 됐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종교 본성을 강하게 자극했다. 따라서, 그는 **우르**에 있을 때 꿈의 영향을 받아, 북부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의 종교를 개편하는 일을 착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는 응보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인**의 관념, 즉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흡수했다. 최상의 **하나님** 관념이 그의 정신 속에 분명히 있었고, 다른 모든 신을 마귀로 격하시켰는데,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여러 귀신 등급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우르**에 남아 있던 **일곱 으뜸 영**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으며, 따라서 그는 일곱 명의 최고신 무리를 만들면서, **아후라_마즈다**를 그 꼭대기에 뒀다. 그는 이런 하위(下位) 신들을, **정의의 율법**, **선한 사고**(思考), **고귀한 정부**, **거룩한 성품**, **건강**, 및 **불멸성**을 이상화한 것과 관련시켰다.

그리고 이 새 종교는, 기도와 제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종교였다--즉 일하는 종교였다. 이 종교의 **하나님**은 최상의 지혜를 지닌 존재이고 문명의 후원자였으며, 이것은 악(惡), 게으름, 및 후진성과 감히 투쟁하는 호전적인 종교 철학이었다.

centuries both in Palestine and Greece, and that Egypt thus became the agent for transmitting the combined evolutionary culture of the Nile and the revelatory religion of the Euphrates to all of the subsequent peoples of the Occident.

95:5.15 (1049.3) The glory of this great era of moral development and spiritual growth in the Nile valley was rapidly passing at about the time the national life of the Hebrews was beginning, and consequent upon their sojourn in Egypt these Bedouins carried away much of these teachings and perpetuated many of Ikhnaton's doctrines in their racial religion.

6. THE SALEM DOCTRINES IN IRAN

95:6.1 (1049.4) From Palestine some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passed on through Mesopotamia and to the great Iranian plateau. For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the Salem teachers made headway in Iran, and the whole nation was swinging to the Melchizedek religion when a change of rulers precipitated a bitter persecution which practically ended the monotheistic teachings of the Salem cult. The doctrine of the Abrahamic covenant was virtually extinct in Persia when, in that great century of moral renaissance, the sixth before Christ, Zoroaster appeared to revive the smouldering embers of the Salem gospel.

95:6.2 (1049.5) This founder of a new religion was a virile and adventurous youth, who, on his first pilgrimage to Ur in Mesopotamia, had learned of the traditions of the Caligastia and the Lucifer rebellion — along with many other traditions — all of which had made a strong appeal to his religious nature. Accordingly, as the result of a dream while in Ur, he settled upon a program of returning to his northern home to undertake the remodeling of the religion of his people. He had imbibed the Hebraic idea of a God of justice, the Mosaic concept of divinity. The idea of a supreme God was clear in his mind, and he set down all other gods as devils, consigned them to the ranks of the demons of which he had heard in Mesopotamia. He had learned of the stor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 the tradition lingered in Ur, and, accordingly, he created a galaxy of seven supreme gods with Ahura-Mazda at its head. These subordinate gods he associated with the idealization of Right Law, Good Thought, Noble Government, Holy Character, Health, and Immortality.

95:6.3 (1049.6) And this new religion was one of action — work — not prayers and rituals. Its God was a being of supreme wisdom and the patron of civilization; it was a militant religious philosophy which dared to battle with evil, inaction, and backwardness.

조로아스터는, 불을 숭배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인 최고 권세를 갖는 순수하고 현명한 영의 상징으로 불꽃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의 후대 추종자들이 이 상징적 불을 모시고 숭배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마침내, **이란** 왕자를 개종시킴에 따라서, 이 새 종교는 무력을 이용함으로써 퍼져나갔다. 그리고 **조로아스터**는, 자신이 “빛의 주{主}의 진리”라고 믿은 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영웅답게 죽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일곱 으뜸 영에 관한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교훈을 영원히 간직했던, **유란시아**의 유일한 신조다. **삼위일체** 개념을 진화시키지 못했지만, 어느 면에서 **조로아스터교**는 **칠중 하나님** 개념에 접근했다. 원래의 **조로아스터교**는 순수한 이원론{二元論}이 아니었으며; 초기 교훈이 비록 악{惡}을 시간세계에서 선함과 동등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악은 확실히 선한 자의 궁극적 실체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여겼다. 후대에 와서야, 그 믿음은 선과 악이 동일한 조건으로 싸운다는 개념을 신봉했다.

히브리인 경전에 기록돼 있듯이, **유대인**의 천국과 지옥의 전승, 그리고 마귀들에 관한 교리는, 잔존한 **루시퍼**와 **캘리개스차**에 대한 전승에 기초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유대인**이 **페르시아인**에게 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지배 받는 동안에 **조로아스터** 신자들로부터 얻었다.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인**처럼 “심판의 날”을 가르쳤지만, 이 사건을 세상의 종말과 관련시켰다.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뒤이은 종교조차, 그것에 현저하게 영향 받았다. **이란**의 사제들이 **조로아스터**의 교훈을 뒤집고자 했을 때, 그들은 옛 **미드라** 숭배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드라교**는 **레반트**와 **지중해** 지역 전체에 퍼졌는데,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와 동시대에 존재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조로아스터**의 교훈은, 세 개의 위대한 종교, 즉: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호메트교**에 연달아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러나 **조로아스터**의 고양된 교훈 및 고상한 성시{聖詩}들은, **파시교도**들이 그의 복음을 왜곡한 현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들은 죽은 자를 크게 두려워했고, 아울러 **조로아스터**가 결코 묵인하지 않았을 그런 궤변을 믿었다.

위대한 이 사람은, 어두워진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길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살렘**의 빛이 너무 희미하게 타고 있을 때,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원전 6세기경에 출현한 그 독특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7. 아라비아의 살렘 교훈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멜기세덱**의 교훈은,

95:6.4 (1049.7) Zoroaster did not teach the worship of fire but sought to utilize the flame as a symbol of the pure and wise Spirit of universal and supreme dominance. (All too true, his later followers did both reverence and worship this symbolic fire.) Finally, upon the conversion of an Iranian prince, this new religion was spread by the sword. And Zoroaster heroically died in battle for that which he believed was the “truth of the Lord of light.”

95:6.5 (1050.1) Zoroastrianism is the only Urantian creed that perpetuates the Dalamatian and Edenic teachings about the Seven Master Spirits. While failing to evolve the Trinity concept, it did in a certain way approach that of God the Sevenfold. Original Zoroastrianism was not a pure dualism; though the early teachings did picture evil as a time co-ordinate of goodness, it was definitely eternity-submerged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good. Only in later times did the belief gain credence that good and evil contended on equal terms.

95:6.6 (1050.2) The Jewish traditions of heaven and hell and the doctrine of devils as recorded in the Hebrew scriptures, while founded on the lingering traditions of Lucifer and Caligastia, were principally derived from the Zoroastrians during the times when the Jews were under the political and cultural dominance of the Persians. Zoroaster, like the Egyptians, taught the “day of judgment,” but he connected this event with the end of the world.

95:6.7 (1050.3) Even the religion which succeeded Zoroastrianism in Persia was markedly influenced by it. When the Iranian priests sought to overthrow the teachings of Zoroaster, they resurrected the ancient worship of Mithra. And Mithraism spread throughout the Levant and Mediterranean regions, being for some time a contemporary of both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teachings of Zoroaster thus came successively to impress three great religions: Judaism and Christianity and, through them, Mohammedanism.

95:6.8 (1050.4) But it is a far cry from the exalted teachings and noble psalms of Zoroaster to the modern perversions of his gospel by the Parsees with their great fear of the dead, coupled with the entertainment of beliefs in sophistries which Zoroaster never stooped to countenance.

95:6.9 (1050.5) This great man was one of that unique group that sprang up in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o keep the light of Salem from being fully and finally extinguished as it so dimly burned to show man in his darkened world the path of light leading to everlasting life.

7. THE SALEM TEACHINGS IN ARABIA

95:7.1 (1050.6) The Melchizedek teachings of the one

비교적 최근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립됐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도, **살렘** 선교사는 지나치게 조직하는 것에 대한 **마키벤타**의 지침을 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부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라는 그의 훈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그런 방해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멜기세덱의 교훈이, 심지어 **중국**이나 **로마**에서도, 바로 그 **살렘**에 그토록 가까이 위치한 이 사막 지역보다 더 완전하게 실패하지는 않았다. **동양**과 **서양**에 있는 민족들 대다수가, 각자 **불교**와 **그리스도교인**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아라비아** 사막은 마치 수천 년 전 상태가 계속되는 듯했다. 각 부족은 옛 주물을 숭배했고, 많은 개별 가정은 자기네 가신(家神)을 섬겼다. **바벨론**의 **이쉬타르**, **히브리인**의 **야훼**, **이란**의 **아후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어떤 한 개념이 결코 다른 개념들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었다.

아라비아 전역 여기저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관념을 고수하는 가족과 씨족들이 있었다. 그런 무리들은,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및 **조로아스터**에 관한 전승을 소중히 간직했다. **예수교인**의 복음에 반응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중심지가 있었지만,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에서 선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타협적이고 혁신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사막 지역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는 엄격하고 완고한 집단이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호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자신이 궁리한 부수적인 사회 요구조건을 덜 까다롭게 했더라면, **아라비아**를 포함해 많은 지역이, 그 목수의 아들의 단순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레반트의 위대한 일신교들이 **아라비아**에서 뿌리 내리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 지대는 한 신앙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사회적 요구는 덜 까다로웠지만, 그런데도 그 신앙은 일신교였다.

사막에 있는 원시적이고 조직되지 않은 믿음에 관해서, 부족, 종족, 또는 국가의 성질을 가진 요소가 꼭 하나 있었는데, 거의 모든 **아라비아** 부족이, **메카**에 있는 어떤 사원의 검은 돌 주물에 기꺼이 특이하게 널리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었다. 만인이 접촉하고 숭상하는 이 지점이 나중에 **이슬람** 종교 설립을 이끌었다. **유대인** **셈족속**이 화산(火山)의 영인 **야훼**를 모셨듯이, 그들의 사촌인 **아랍인**은 **카바**의 돌을 모셨다.

이슬람의 장점은, 오직 유일한 **신격**인 **알라**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소개한 것이었으며, 약점은, 여자를 격하시킨 점과 함께, 군사적 힘을 종교의 보급과 관련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만유

God became established in the Arabian desert at a comparatively recent date. As in Greece, so in Arabia the Salem missionaries failed because of their misunderstanding of Machiventa's instructions regarding overorganization. But they were not thus hindered by their interpretation of his admonition against all efforts to extend the gospel through military force or civil compulsion.

95:7.2 (1050.7) Not even in China or Rome did the Melchizedek teachings fail more completely than in this desert region so very near Salem itself. Long after the majority of the peoples of the Orient and Occident had become respectively Buddhist and Christian, the desert of Arabia continued as it had for thousands of years. Each tribe worshiped its olden fetish, and many individual families had their own household gods. Long the struggle continued between Babylonian Ishtar, Hebrew Yahweh, Iranian Ahura, and Christian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Never was one concept able fully to displace the others.

95:7.3 (1051.1) Here and there throughout Arabia were families and clans that held on to the hazy idea of the one God. Such groups treasured the traditions of Melchizedek, Abraham, Moses, and Zoroaster. There were numerous centers that might have responded to the Jesusonian gospel, but the Christian missionaries of the desert lands were an austere and unyielding group in contrast with the compromisers and innovators who functioned as missionaries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Had the followers of Jesus taken more seriously his injunct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had they been more gracious in that preaching, less stringent in collateral social requirements of their own devising, then many lands would gladly have received the simple gospel of the carpenter's son, Arabia among them.

95:7.4 (1051.2) Despite the fact that the great Levantine monotheisms failed to take root in Arabia, this desert land was capable of producing a faith which, though less demanding in its social requirements, was nonetheless monotheistic.

95:7.5 (1051.3) There was only one factor of a tribal, racial, or national nature about the primitive and unorganized beliefs of the desert, and that was the peculiar and general respect which almost all Arabian tribes were willing to pay to a certain black stone fetish in a certain temple at Mecca. This point of common contact and reverence subsequent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slamic religion. What Yahweh, the volcano spirit, was to the Jewish Semites, the Kaaba stone became to their Arabic cousins.

95:7.6 (1051.4) The strength of Islam has been its clear-cut and well-defined presentation of Allah as the one and only Deity; its weakness, the association of military force with its promulgation,

의 유일한 우주 신격을 확고부동하게 끊임없이 제시해 왔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를 아시는 분이다. 그는 자비롭고 인정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넷째 존재로 계시는데,” 그 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며, 또한 보이는 분일뿐 아니라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 아닌가?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together with its degradation of woman. But it has steadfastly held to its presentation of the One Universal Deity of all, “who knows the invisible and the visible. He is the merciful and the compassionate.” “Truly God is plenteous in goodness to all men.” “And when I am sick, it is he who heals me.” “For whenever as many as three speak together, God is present as a fourth,” for is he not “the first and the last, also the seen and the hidden”?

95:7.7 (1051.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6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나님

⇨ 095

유란시아 책

09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96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나님

섹션

소개

1. 셈족속의 신격 개념
2. 셈족속의 민족
3. 독보적인 모세
4. 야훼를 선포함
5. 모세의 교훈
6. 모세가 죽은 후의 하나님 개념
7. 시편과 읍기

PAPER 96

YAHWEH — GOD OF THE HEBREWS

SECTIONS

Introduction

1. Deity Concepts among the Semites
2. The Semitic Peoples
3. The Matchless Moses
4. The Proclamation of Yahweh
5. The Teachings of Moses
6. The God Concept after Moses' Death
7. Psalms and the Book of Job

소개

신격을 상상할 때,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신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외부의 모든 신을 자기 부족 신격 아래 복속시키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지고한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 **유대인**은 모든 신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더 탁월한 개념으로 통합했다. 마찬가지로 **힌두인**은, 자신의 잡다한 신격을, **리그_베다**에 표현된 “신들의 한 가지 영성{靈性}”으로 합성시켰으며, 한편 **메소포타미아인**은, **벨_마르둑**이라는 더 집중된 개념으로 그 신들을 축소시켰다. 이 일신교 관념은, **마키베타 멜기세덱**이 **팔레스틴**의 **살렘** 지역에 출현한 후 오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신격** 개념은, 포함시키고, 종속시키고, 배제하는 진화된 철학적 개념과는 달랐으며; 오로지 창조하는 능력에 기초했고, 곧 **메소포타미아**, **인도**, 및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격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겐족속을 비롯한 다른 몇몇 **가나안** 부족은, **살렘** 종교를 전승으로서 존중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육신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증여되는 길을 예비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종

INTRODUCTION

96:0.1 (1052.1) IN CONCEIVING of Deity, man first includes all gods, then subordinates all foreign gods to his tribal deity, and finally excludes all but the one God of final and supreme value. The Jews synthesized all gods into their more sublime concept of the Lord God of Israel. The Hindus likewise combined their multifarious deities into the “one spirituality of the gods” portrayed in the Rig-Veda, while the Mesopotamians reduced their gods to the more centralized concept of Bel-Marduk. These ideas of monotheism matured all over the world not long after the appearance of Melchizedek at Salem in Palestine. But the Melchizedek concept of Deity was unlike that of the evolutionary philosophy of inclusion, subordination, and exclusion; it was based exclusively on *creative power* and very soon influenced the highest deity concepts of Mesopotamia, India, and Egypt.

96:0.2 (1052.2) The Salem religion was revered as a tradition by the Kenites and several other Canaanite tribes. And this was one of the purposes of Melchizedek's incarnation: That a religion of one God should be so fostered as to prepare the way for the earth bestowal of a Son of

교가 그렇게 육성돼야만 했다. **미가엘**은, 자신이 나타나게 될 그들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를 믿는 어떤 민족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올 수 없었다.

팔레스틴에서 **켄족속**이 **살렘** 종교를 자신의 신조(信條)로 유지해 왔으며, 이 종교는 나중에 **히브리인**이 채택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집트인**의 도덕적 교훈에 영향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바벨론**의 신학 사고(思考)에;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에 대한 **이란인**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인** 종교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마키벤타 멜기세덱** 사이의 계약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으로는 여러 독특한 상황에 알맞은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물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전체 **레반트**의 종교, 도덕, 및 사상에서 거리낌 없이 빌려온 것이다. **히브리** 종교를 통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이란**의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의 많은 부분이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졌다.

1. 셈족속의 신격 개념

초기 **셈족속**은, 영이 만물에 내주한다고 생각했다. 동물계와 식물계의 영들; 소산물(所産物)의 주인인 1년생 영들; 불, 물, 및 공기의 영들; 그리고 경외심과 숭배를 받으려는 영들로 가득한, 진정한 만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이런 하위(下位) 영들 또는 자연 신들에 대한 믿음을 결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히브리인이 다신교로부터 단일신교를 거쳐서 일신교로 발전한 것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난 개념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격**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역행(逆行)을 경험했으며, 또한 모든 시기마다 서로 다른 **셈족속** 신자 무리들 가운데서 다양한 **하나님** 개념이 존재했다. 때로는 수많은 단어가 그들의 **하나님** 개념에 적용됐으며, 이런 다양한 **신격** 이름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신학의 진화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1. **야훼**는 남쪽에 있는 **팔레스틴** 부족들의 신이었는데, 그들은 이 신격 개념을 **호렘산**, 즉 **시나이 화산(火山)**과 관련시켰다. **야훼**는, **셈족속** 부족들과 민족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의 경배를 요구한, 수백 수천의 자연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2. **엘 엘리온**. **멜기세덱**이 **살렘**에 머문 후에, 그의 **신격** 교리가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판으로 유지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엘 엘리온**, 즉 하늘의 **지고자 하나님**이라는 말로 암시됐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포함해서 다수의 **셈족속**이, 여러 경우에 **야훼**와 **엘 엘리온**, 둘 다 숭배했다.

that one God. Michael could hardly come to Urantia until there existed a people believing in the Universal Father among whom he could appear.

96:0.3 (1052.3) The Salem religion persisted among the Kenites in Palestine as their creed, and this religion as it was later adopted by the Hebrews was influenced, first, by Egyptian moral teachings; later, by Babylonian theologic thought; and lastly, by Iranian conceptions of good and evil. Factually the Hebrew religion is predicated upon the covenant between Abraham and Melchizedek, evolutionally it is the outgrowth of many unique situational circumstances, but culturally it has borrowed freely from the religion, morality, and philosophy of the entire Levant. It is through the Hebrew religion that much of the morality and religious thought of Egypt, Mesopotamia, and Iran was transmitted to the Occidental peoples.

1. DEITY CONCEPTS AMONG THE SEMITES

96:1.1 (1052.4) The early Semites regarded everything as being indwelt by a spirit. There were spirits of the animal and vegetable worlds; annual spirits, the lord of progeny; spirits of fire, water, and air; a veritable pantheon of spirits to be feared and worshiped. And the teaching of Melchizedek regarding a Universal Creator never fully destroyed the belief in these subordinate spirits or nature gods.

96:1.2 (1052.5) The progress of the Hebrews from polytheism through henotheism to monotheism was not an unbroken and continuous conceptual development. They experienced many retrogressions in the evolution of their Deity concepts, while during any one epoch there existed varying ideas of God among different groups of Semite believers. From time to time numerous terms were applied to their concepts of God, and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these various Deity titles will be defined as they pertain to the evolution of Jewish theology:

96:1.3 (1053.1) 1. *Yahweh* was the god of the southern Palestinian tribes, who associated this concept of deity with Mount Horeb, the Sinai volcano. Yahweh was merely one of the hundreds and thousands of nature gods which held the attention and claimed the worship of the Semitic tribes and peoples.

96:1.4 (1053.2) 2. *El Elyon*. For centuries after Melchizedek's sojourn at Salem his doctrine of Deity persisted in various versions but was generally connoted by the term El Elyon, the Most High God of heaven. Many Semites, including the immediate descendants of Abraham, at various times worshiped both Yahweh and El Elyon.

3. **엘 샤다이**. **엘 샤다이**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하나님** 관념은, **이크나톤**의 **아톤** 교리로 인해서 변경되고, **엘 엘리온** 개념에 들어있는 **멜기세덱**의 교훈에 더 영향 받았던, **아메네투**의 **지혜**의 교훈에서 유래된 합성물이었다. 그러나 **엘 샤다이** 개념이 **히브리인**의 정신에 퍼지게 되자, 그것은 사막의 **야훼** 믿음으로 완전히 물들게 됐다.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지배적 관념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인**의 신성한 **섭리** 개념, 즉 물질적 번영이 **엘 샤다이**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르침이었다.

4. **엘**. 용어상의 이 혼돈과 개념상의 불투명성의 와중에, 신앙심 깊은 많은 신자는, 신성(神性)에 대한 이런 진화하는 모든 관념을 숭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고, 그리하여 이 복합된 **신격**을 **엘**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용어는 **베두윈**의 자연 신들 중에서 또 다른 신을 포함했다.

5. **엘로힘**. **키쉬**와 **우르**에는 **수메르** **갈대아인** 집단들이 오랫동안 존속했는데, 이들은 **아담**과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에 기초한, 세_분이_하나_된 **하나님** 개념을 가르쳤다. 이 교리는 **이집트**로 전수됐고, 이 **삼위일체**는 거기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단수(單數) 형태의 **엘로아**로서 숭배됐다. **이집트**에서 철학을 하는 무리들과 **히브리** 혈통의 후대 **알렉산드리아** 선생들은, 다원론의 **하나님**들이 이렇게 통일됐다고 가르쳤으며,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조언자들 중에서 다수가 이 **삼위일체**를 믿었다. 그러나 삼자일체의 **엘로힘** 개념은, 그들이 **바벨론인**의 정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기까지는, **히브리인** 신학의 실제 부분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6. **잡다한 이름**. **셈족**은 자기네 **신격**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를 싫어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때때로 수많은 명칭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영**, **주**, **주의 천사**, **전능자**, **거룩하신 분**, **지고자**, **아도나이**, **태고 항존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큐리오스**, **야**, **만군의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등이었다.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오랜 체험에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완성된 **야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근래에 채택한 용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시대 이후 1500년이 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까지, **시나이산**은 때때로 화산 활동이 계속됐는데, **이스라엘족**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후대에도 이따금씩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레 같은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는, 주변 지역에 있는 **베두윈족**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호렘**

96:1.5 (1053.3) 3. *El Shaddai*. It is difficult to explain what El Shaddai stood for. This idea of God was a composite derived from the teachings of Amenemope's Book of Wisdom modified by Ikhnaton's doctrine of Aton and further influenced by Melchizedek's teachings embodied in the concept of El Elyon. But as the concept of El Shaddai permeated the Hebrew mind, it became thoroughly colored with the Yahweh beliefs of the desert.

96:1.6 (1053.4) One of the dominant ideas of the religion of this era was the Egyptian concept of divine Providence, the teaching that material prosperity was a reward for serving El Shaddai.

96:1.7 (1053.5) 4. *El*. Amid all this confusion of terminology and haziness of concept, many devout believers sincerely endeavored to worship all of these evolving ideas of divinity, and there grew up the practice of referring to this composite Deity as El. And this term included still other of the Bedouin nature gods.

96:1.8 (1053.6) 5. *Elohim*. In Kish and Ur there long persisted Sumerian-Chaldean groups who taught a three-in-one God concept founded on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Adam and Melchizedek. This doctrine was carried to Egypt, where this Trinity was worshiped under the name of Elohim, or in the singular as Eloah. The philosophic circles of Egypt and later Alexandrian teachers of Hebraic extraction taught this unity of pluralistic Gods, and many of Moses' advisers at the time of the exodus believed in this Trinity. But the concept of the trinitarian Elohim never became a real part of Hebrew theology until after they had come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Babylonians.

96:1.9 (1053.7) 6. *Sundry names*. The Semites disliked to speak the name of their Deity, and they therefore resorted to numerous appellations from time to time, such as: The Spirit of God, The Lord, The Angel of the Lord, The Almighty, The Holy One, The Most High, Adonai, The Ancient of Days, The Lord God of Israel,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Kyrios, Jah, The Lord of Hosts, and The Father in Heaven.

96:1.10 (1053.8) *Jehovah* is a term which in recent times has been employed to designate the completed concept of Yahweh which finally evolved in the long Hebrew experience. But the name Jehovah did not come into use until fifteen hundred years after the times of Jesus.

96:1.11 (1054.1) Up to about 2000 B.C., Mount Sinai was intermittently active as a volcano, occasional eruptions occurring as late as the time of the sojourn of the Israelites in this region. The fire and smoke, together with the thunderous detonations associated with the eruptions of this volcanic mountain, all impressed and awed the Bedouins of

산의 이 영은 나중에 **히브리인 셈족속**의 신{神}이 됐으며, 그들은 결국 그 신이 다른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됐다.

가나안족속은 오랫동안 **야훼**를 숭배했으며, 비록 **켄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렘** 종교의 초월신 **엘 엘리온**을 다소 믿기는 했지만, **가나안족속** 대부분은 옛 부족 신격들을 숭배하기를 막연하게 고수했다. 그들은, 행성 간{行星 間} **하나님**은 고사하고, 국제적 **하나님** 개념을 위해서 자기네 민족의 신격들을 기꺼이 버릴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우주의 신격을 받아들일만한 정신을 갖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들은 계속 자신의 부족 신격들을 숭배했는데, **야훼**는 물론, **베두원** 목자들의 **시나이** 화산 영 개념을 상징화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도 포함됐다.

시리아인은, 자기네 신들을 숭배하는 동시에, **히브리인**의 **야훼**도 믿었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이 **시리아** 왕에게:“그들의 신들은 언덕의 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야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작은 신들은 최고 신격에게 종속되며; 위대한 **조브**(즉 **주피터**)는 겨우 감탄사로 존속할 뿐이다. 일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급 신들을, 영, 귀신, 운명, **네레이즈**, 요정, 농가{農家}의 요정, 난쟁이, 여자 요정, 흉안{凶眼} 등으로 유지시킨다. **히브리인**은 단일신교 단계를 지나왔고, **야훼**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음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런 이방의 신격들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됐다. 그들은 **아모리족속**의 신{神}인 **케모쉬**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 신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에 관한 필사자의 모든 이론 중에서, **야훼** 관념이 가장 광범한 발전을 겪어왔다. 그런 발전적 진화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다** 개념의 변모밖에 없는데, **야훼** 개념이 마침내 **만유의 아버지** 관념으로 인도된 것처럼, **부다** 개념은 결국 **우주 절대자** 개념으로 인도됐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격 관점을, **호렘산**의 부족{部族} 신으로부터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후대의 **창조주 아버지**로 바꿨지만,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내내, 이런 진화하는 신격 개념을 **야훼**라고 불렀다.

the surrounding regions and caused them greatly to fear Yahweh. This spirit of Mount Horeb later became the god of the Hebrew Semites, and they eventually believed him to be supreme over all other gods.

96:1.12 (1054.2) The Canaanites had long revered Yahweh, and although many of the Kenites believed more or less in El Elyon, the supergod of the Salem religion, a majority of the Canaanites held loosely to the worship of the old tribal deities. They were hardly willing to abandon their national deities in favor of an international, not to say an interplanetary, God. They were not universal-deity minded, and therefore these tribes continued to worship their tribal deities, including Yahweh and the silver and golden calves which symbolized the Bedouin herders' concept of the spirit of the Sinai volcano.

96:1.13 (1054.3) The Syrians, while worshiping their gods, also believed in Yahweh of the Hebrews, for their prophets said to the Syrian king: "Their gods are gods of the hills; therefore they were stronger than we; but let us fight against them on the plain, and surely we shall be stronger than they."

96:1.14 (1054.4) As man advances in culture, the lesser gods are subordinated to a supreme deity; the great Jove persists only as an exclamation. The monotheists keep their subordinate gods as spirits, demons, fates, Nereids, fairies, brownies, dwarfs, banshees, and the evil eye. The Hebrews passed through henotheism and long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gods other than Yahweh, but they increasingly held that these foreign deities were subordinate to Yahweh. They conceded the actuality of Chemosh, god of the Amorites, but maintained that he was subordinate to Yahweh.

96:1.15 (1054.5) The idea of Yahweh has undergone the most extensive development of all the mortal theories of God. Its progressive evolution can only be compared with the metamorphosis of the Buddha concept in Asia, which in the end led to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bsolute even as the Yahweh concept finally led to the idea of the Universal Father. But as a matter of historic fac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while the Jews thus changed their views of Deity from the tribal god of Mount Horeb to the loving and merciful Creator Father of later times, they did not change his name; they continued all the way along to call this evolving concept of Deity, Yahweh.

2. 셈족속의 민족

동방의 **셈족속**은, 잘 조직되고 잘 훈련받은 기마인{騎馬人}이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동쪽으로 침입해서, 거기서 **바벨론인**과 결합했다. **우르** 근처의 **갈대아인**은 동쪽 **셈족속** 가운데서 가

2. THE SEMITIC PEOPLES

96:2.1 (1054.6) The Semites of the East were well-organized and well-led horsemen who invaded the eastern regions of the fertile crescent and there united with the Babylonians. The Chaldeans near

장 진보된 족속에 속했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장악한, 우수하고 잘 조직된 혼합된 **셈족속** 집단이었다. 인종적으로 볼 때, **셈족속**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 가장 피가 많이 섞인 사람에 속했는데, 당시에 아홉 세계 인종 가운데 거의 전부의 유전 인자를 내포했다.

아라비아의 **셈족속**은, 북쪽에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반복해서 투쟁하며 올라갔지만, 더 조직이 잘 돼있고 더 고도로 문명화된, 북쪽의 **셈족속**과 **헷족속**에게 번번이 밀려났다. 나중에, 대단히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방랑하는 이 **베두원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집트** 공공 작업장의 계약 노동자가 되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나일** 강 유역의 평범하고 학대받는 노동자로서, 매일 힘들게 고생하며 노예 상태의 쓰라린 체험을 하는 신세가 됐을 뿐이다.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시대 이후가 돼서야,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떤 **셈족속** 부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유대인**, 및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게 됐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전체의 인종적 조상이 아니었으며, **이집트**에 포로 됐던 **베두원** **셈족속** 전체의 조상도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자손이 후대에 **유대인** 민족의 핵심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씨족으로 편입된 거의 대부분의 남녀는 **이집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 **아브라함** 후손과 그들의 **셈족속** 동료들이 **아라비아** 북부를 거쳐서 여행하는 동안, **모세**의 지휘 체제를 따르기로 선택한 동료 유목민에 불과했다.

얼마 안 있어서, **히브리인** 국가를 형성하게 될 **셈족속**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되자, **엘 엘리온**, **지고자**,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신성한 은총을 받는다고 약속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대체로 잊혀졌다. 그러나 포로로 살던 이 기간 내내, 이 **아라비아** 유목민은 그들의 종족 신격으로서 **야훼**에 대한 남아있는 전통적 믿음을 유지했다.

100개 이상의 독립된 **아라비아** 부족이 **야훼**를 숭배했으며,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혼합된 혈통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비교적 교양 있는 부류 가운데서 유지됐던 **멜기세덱**의 **엘 엘리온** 개념에 얽게 묶든 것을 제외하고, 포로가 된 서민 계층의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진 종교는, 신비적이고 제물을 바치는 옛 **야훼** 제례식의 개정판이었다.

Ur were among the most advanced of the eastern Semites. The Phoenicians were a superior and well-organized group of mixed Semites who held the western section of Palestine, along the Mediterranean coast. Racially the Semites were among the most blended of Urantia peoples, containing hereditary factors from almost all of the nine world races.

96:2.2 (1054.7) Again and again the Arabian Semites fought their way into the northern Promised Land, the land that “flowed with milk and honey,” but just as often were they ejected by the better-organized and more highly civilized northern Semites and Hittites. Later, during an unusually severe famine, these roving Bedouins entered Egypt in large numbers as contract laborers on the Egyptian public works, only to find themselves undergoing the bitter experience of enslavement at the hard daily toil of the common and downtrodden laborers of the Nile valley.

96:2.3 (1055.1) It was only after the days of Machiventa Melchizedek and Abraham that certain tribes of Semites, because of their peculiar religious beliefs, were called the children of Israel and later on Hebrews, Jews, and the “chosen people.” Abraham was not the racial father of all the Hebrews; he was not even the progenitor of all the Bedouin Semites who were held captive in Egypt. True, his offspring, coming up out of Egypt, did form the nucleus of the later Jewish people, but the vast majority of the men and women who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clans of Israel had never sojourned in Egypt. They were merely fellow nomads who chose to follow the leadership of Moses as the children of Abraham and their Semite associates from Egypt journeyed through northern Arabia.

96:2.4 (1055.2) The Melchizedek teaching concerning El Elyon, the Most High, and the covenant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had been largely forgotten by the time of the Egyptian enslavement of the Semite peoples who were shortly to form the Hebrew nation. But throughout this period of captivity these Arabian nomads maintained a lingering traditional belief in Yahweh as their racial deity.

96:2.5 (1055.3) Yahweh was worshiped by more than one hundred separate Arabian tribes, and except for the tinge of the El Elyon concept of Melchizedek which persisted among the more educated classes of Egypt, including the mixed Hebrew and Egyptian stocks, the religion of the rank and file of the Hebrew captive slaves was a modified version of the old Yahweh ritual of magic and sacrifice.

3. 독보적인 모세

3. THE MATCHLESS MOSES

최상급 창조주라는 **히브리** 개념과 이상(理想)의 진화가 시작된 것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선생이며 조직가인 **모세**의 지도하에, **셈족속**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부터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왕족(王族)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베두원** 포로와 정부(政府) 사이에서 연락 업무를 맡은 **셈족속** 혈통의 관리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수한 종족 근원에서 유래된 자질을 소유했으며; 그의 조상은 피가 매우 많이 섞였으므로, 어느 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이런 혼합된 유형이 아니었다면, 그의 지휘 하에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친 그 **베두원** **셈족속**과 결국 연합하게 된, 다양한 유랑민 무리를 잘 다루도록 했던 그런 특이한 다재다능함과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나일 왕국 문화의 유혹에도, **모세**는 아버지의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선택했다. 이 위대한 조직가가, 아버지의 민족을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베두원** 포로는 그 이름에 걸 맞는 종교를 갖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참된 **하나님** 개념이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일찍이 어떤 지도자도, 이보다 더 비참하고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무지한 인간 집단을 갱생(更生)하고 향상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유전적 혈통에 잠복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유를 위한 폭동과 파업을 일으킬 날을 위해서 유능한 조직자 단체를 구성할 만큼 **모세**가 지도한, 충분한 숫자의 학식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우수한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의 토착민 감독관으로서 고용돼 있었으며; **모세**가 **이집트인**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

모세는 동포 **셈족속**의 해방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려고 애썼다. 그와 그의 형제는 **이집트**의 왕과 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평화적으로 **나일** 강 유역을 떠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동한 대가(代價)로 적당한 양의 돈과 물질을 받게 되어 있었다. **히브리인** 편에서는, **바로**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이집트**에 대적하는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그 왕은 나중에 이 조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첩자들이 **베두원** 노예들 가운데서 불충함을 발견했다는 핑계를 이유로 삼았다. 그들이 **이집트**에 맞서서 유목민을 조직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자유를 찾는다고, 그 왕은 주장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강력한 **리비아** 군대가 남쪽에서 들이닥치고 **그리스** 해군이 북쪽에서 침입하는, 동시적 맹공을 물리치는 일에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전념하게 됐을 때, 이 대담한 조

96:3.1 (1055.4) The beginning of the evolution of the Hebraic concepts and ideals of a Supreme Creator dates from the departure of the Semites from Egypt under that great leader, teacher, and organizer, Moses. His mother was of the royal family of Egypt; his father was a Semitic liaison officer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edouin captives. Moses thus possessed qualities derived from superior racial sources; his ancestry was so highly blended that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him in any one racial group. Had he not been of this mixed type, he would never have displayed that unusual versatility and adaptability which enabled him to manage the diversified horde which eventually became associated with those Bedouin Semites who fled from Egypt to the Arabian Desert under his leadership.

96:3.2 (1055.5) Despite the enticements of the culture of the Nile kingdom, Moses elected to cast his lot with the people of his father. At the time this great organizer was formulating his plans for the eventual freeing of his father's people, the Bedouin captives hardly had a religion worthy of the name; they were virtually without a true concept of God and without hope in the world.

96:3.3 (1055.6) No leader ever undertook to reform and uplift a more forlorn, downcast, dejected, and ignorant group of human beings. But these slaves carried latent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in their hereditary strains, and there were a sufficient number of educated leaders who had been coached by Moses in preparation for the day of revolt and the strike for liberty to constitute a corps of efficient organizers. These superior men had been employed as native overseers of their people; they had received some education because of Moses' influence with the Egyptian rulers.

96:3.4 (1056.1) Moses endeavored to negotiate diplomatically for the freedom of his fellow Semites. He and his brother entered into a compact with the king of Egypt whereby they were granted permission peaceably to leave the valley of the Nile for the Arabian Desert. They were to receive a modest payment of money and goods in token of their long service in Egypt. The Hebrews for their part entered into an agreement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Pharaohs and not to join in any alliance against Egypt. But the king later saw fit to repudiate this treaty, giving as his reason the excuse that his spies had discovered disloyalty among the Bedouin slaves. He claimed they sought freedom for the purpose of going into the desert to organize the nomads against Egypt.

96:3.5 (1056.2) But Moses was not discouraged; he bided his time, and in less than a year, when the Egyptian military forces were fully occupied in resisting the simultaneous onslaughts of a strong Libyan thrust from the south and a Greek naval

직가는 자기 동포를 이끌고 극적인 야간도주(夜間逃走)를 감행함으로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다. 자유를 위한 이 행진은 신중하게 계획됐고 능숙하게 수행됐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와 작은 규모의 **이집트** 부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왔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부대는 모두 도망자들의 반향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많은 전리품을 안겨왔으며, 이 모든 것 외에도, 사막에 있는 조상의 고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동안, 도망치면서 전진하는 노예 무리의 약탈로 더해졌다.

4. 야훼를 선포함

진화하고 향상된 **모세**의 가르침은, 전 세계에 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렇다. **모세**는 더 진보된 **이집트**의 종교 철학을 이해했고, 한편 **베두원** 노예는 그런 교훈을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 선조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호렘 산**의 신을 완전히 잊은 적은 결코 없었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교훈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왕족 핏줄의 여자와 포로 된 인종의 남자가 보기 드물게 결합하게 된 것을, 그들의 공통된 종교적 신념이 설명해 준다. **모세**의 장인은 **엘 엘리온**을 숭배하는 **켄족속**이었지만, 그 해방자의 부모는 **엘 샤다이**를 믿었다. 그래서 **모세**는 **엘 샤다이**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육받았으며; 그의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엘 엘리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고,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에 **시내 산**에 머물 무렵이 되자, (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믿음으로부터) 그는 새롭게 확장된 **신격** 개념을 형성했으며, 현명하게도 이것을 자기 민족에게, 확장된 전통적 부족 신 **야훼** 개념으로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모세는 이 **베두원족속**에게 **엘 엘리온** 관념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그들이 이 교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이 섬기는 사막의 신을, 추종자들의 유일한 신으로 절충해서 채택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했다. **모세**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 다른 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않지만, **야훼**가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특히 **히브리인**에게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야훼**라는 옛 이름을 가장해서, 무지한 이 노예들에게 새롭고 더 높은 **신격** 관념을 제시하려고 애쓰는 거북스런 문제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워했는데, **베두원** 부족들의 금송아지가 항상 이 **야훼**를 상징했다.

야훼가 도망치는 **히브리인**의 신이었다는 사실은, 왜 그들이 거룩한 **시내 산**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호렘 산**의 신(神)인

invasion from the north, this intrepid organizer led his compatriots out of Egypt in a spectacular night flight. This dash for liberty was carefully planned and skillfully executed. And they were successful, notwithstanding that they were hotly pursued by Pharaoh and a small body of Egyptians, who all fell before the fugitives' defense, yielding much booty, all of which was augmented by the loot of the advancing host of escaping slaves as they marched on toward their ancestral desert home.

4. THE PROCLAMATION OF YAHWEH

96:4.1 (1056.3) The evolution and elevation of the Mosaic teaching has influenced almost one half of all the world, and still does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While Moses comprehended the more advanced Egyptian religious philosophy, the Bedouin slaves knew little about such teachings, but they had never entirely forgotten the god of Mount Horeb, whom their ancestors had called Yahweh.

96:4.2 (1056.4) Moses had heard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from both his father and his mother, their commonness of religious belief being the explanation for the unusual union between a woman of royal blood and a man from a captive race. Moses' father-in-law was a Kenite worshiper of El Elyon, but the emancipator's parents were believers in El Shaddai. Moses thus was educated an El Shaddaist; through the influence of his father-in-law he became an El Elyonist; and by the time of the Hebrew encampment about Mount Sinai after the flight from Egypt, he had formulated a new and enlarged concept of Deity (derived from all his former beliefs), which he wisely decided to proclaim to his people as an expanded concept of their olden tribal god, Yahweh.

96:4.3 (1056.5) Moses had endeavored to teach these Bedouins the idea of El Elyon, but before leaving Egypt, he had become convinced they would never fully comprehend this doctrine. Therefore he deliberately determined upon the compromise adoption of their tribal god of the desert as the one and only god of his followers. Moses did not specifically teach that other peoples and nations might not have other gods, but he did resolutely maintain that Yahweh was over and above all, especially to the Hebrews. But always was he plagued by the awkward predicament of trying to present his new and higher idea of Deity to these ignorant slaves under the guise of the ancient term Yahweh, which had always been symbolized by the golden calf of the Bedouin tribes.

96:4.4 (1056.6) The fact that Yahweh was the god of the fleeing Hebrews explains why they tarried so long before the holy mountain of Sinai, and why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공포했던 **십계명**이 왜 거기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한다. **시나이 산**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새로 진화하는 **히브리인** 경배의 종교 예식절차가 더욱 다듬어졌다.

그들이 산 아래서 엄숙히 머물던 셋째 주 동안에 **호렙 산**의 맹렬한 화산 분출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진보된 숭배 예식 제정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25년 동안 변치 않게 지키는 일에서, **모세**가 성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야훼**의 산이 불 속에 타오르고, 연기가 마치 화로{火爐} 연기처럼 올라갔으며,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지각변동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하고, 무시무시하며, 맹렬한 불이고, 무시무시하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모세**가 동족에게 가르쳤을 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놀랍지 않다.

모세는, **야훼**가 직접 **히브리인**을 유일한 선민{選民}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었고, 현명하게도 자신의 종교 교훈을 민족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야훼**가 엄격한 감독관, 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럼에도 그는, **야훼**가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희 피난처시며 영원한 팔로 보호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신성{神性}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애썼다. **모세**는, **야훼**가 계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모세는, “진실하며 죄악이 없으신, 모든 행사가 공의롭고 옳으신 **하나님**”이라고 **야훼**를 표현했을 때, 최고 **신격**의 존엄성으로 그를 격상시키려는 영웅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런 고양된 가르침에도, 추종자들의 제한된 이해력 때문에, 사람 형상, 즉 화내고 복수하며 혹독하다고 여겨지는 존재, 심지어 복수심이 불타고 사람의 행위에 쉽게 좌우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교훈에 따라서, 이 부족의 자연 신{神} **야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됐는데, 그 **야훼**는 광야로 나와서 방랑하는 때까지도 그들을 따라왔고, 거기서 곧 **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됐다. 후일에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어 포로생활을 한 덕분에, 진화하는 **야훼** 개념이 마침내 해방됨으로써,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일신교의 역할을 떠맡았다.

히브리인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색은, **호렙 산**의 원시 신으로부터, 뒤를 이은 영적 지도자들의 교훈을 거쳐서, 두 **이사야**의 **신격** 교리에 묘사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신격** 개념이 이렇게 계속 진화한 것과 관계되는

they there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which Moses promulgated in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Horeb. During this lengthy sojourn before Sinai the religious ceremonials of the newly evolving Hebrew worship were further perfected.

96:4.5 (1057.1) It does not appear that Moses would ever have succ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his somewhat advanced ceremonial worship and in keeping his followers intact for a quarter of a century had it not been for the violent eruption of Horeb during the third week of their worshipful sojourn at its base. “The mountain of Yahweh was consumed in fire, and the smoke ascended like the smoke of a furnace, and the whole mountain quaked greatly.” In view of this cataclysm it is not surprising that Moses could impress upon his brethren the teaching that their God was “mighty, terrible, a devouring fire, fearful, and all-powerful.”

96:4.6 (1057.2) Moses proclaimed that Yahweh was the Lord God of Israel, who had singled out the Hebrews as his chosen people; he was building a new nation, and he wisely nationalized his religious teachings, telling his followers that Yahweh was a hard taskmaster, a “jealous God.” But nonetheless he sought to enlarge their concept of divinity when he taught them that Yahweh was the “God of the spirits of all flesh,” and when he said,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Moses taught that Yahweh was a covenant-keeping God; that he “will not forsake you, neither destroy you, nor forget the covenant of your fathers because the Lord loves you and will not forget the oath by which he swore to your fathers.”

96:4.7 (1057.3) Moses made a heroic effort to uplift Yahweh to the dignity of a supreme Deity when he presented him as the “God of truth and without iniquity, just and right in all his ways.” And yet, despite this exalted teaching, the limited understanding of his followers made it necessary to speak of God as being in man’s image, as being subject to fits of anger, wrath, and severity, even that he was vengeful and easily influenced by man’s conduct.

96:4.8 (1057.4) Under the teachings of Moses this tribal nature god, Yahweh, became the Lord God of Israel, who followed them through the wilderness and even into exile, where he presently was conceived of as the God of all peoples. The later captivity that enslaved the Jews in Babylon finally liberated the evolving concept of Yahweh to assume the monotheistic role of the God of all nations.

96:4.9 (1057.5) The most unique and amazing feature of the religious history of the Hebrews concerns this continuous evolution of the concept of Deity from the primitive god of Mount Horeb up through the teachings of their successive spiritual leaders

데, 두 **이사야**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훌륭한 개념을 선포했다.

to the high level of development depicted in the Deity doctrines of the Isaiahs, who proclaimed that magnificent concept of the loving and merciful Creator Father.

5. 모세의 교훈

모세는, 군사 지도자, 사회 조직가, 및 종교 선생의 역할이 대단하게 통합된 인물이었다. 그는 **마키벤타**와 **예수** 사이의 기간에, 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 선생이자 지도자였다. **모세**는, 현재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개혁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생애 만에, 차후에 한 나라가 탄생하고 한 종족이 영속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한편, **히브리인**이라 불리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유랑민 무리를, 노예 신세와 문명화되지 못하고 방랑하던 처지로부터 이끌어냈다.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인**에게 글자가 없었으므로,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귀하다. 그 시대와 **모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 1,00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잔존하는 전승으로부터 유래했다.

모세가 **이집트**인과 주변의 **레반트** 부족들의 종교보다 앞서서 이룩한 진보 가운데 다수는, **멜기세덱** 시대의 **켄족속** 전승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同時代) 사람에게 **마키벤타**가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은 아무 희망 없는 암흑 속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는,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 가운데 남은 것들을 수집했고, 이 교훈은 **이집트인**의 학문과 결합해서 **이스라엘족속**의 개량된 종교와 제례식을 창안하도록 **모세**를 인도했다. **모세**는 조직가였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틴**의 종교 및 사회관행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선택했고, 이 풍습을 **멜기세덱** 교훈의 전승과 결합시켜서, **히브리인** 경배 예식절차 체계를 조직했다.

모세는 **섭리**를 믿었으며; 초자연적 힘이 **나일** 강 및 다른 자연 요소들을 통제한다는 **이집트**의 교리로 완전히 오염됐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큰 통찰력을 가졌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마음으로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태(胎)의 열매와 너희 땅의 소산물들--곧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떼를-- 배가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번영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희의 모든 병을 물리치고,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에서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신 **주**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에게 빌려주겠으나, 너희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을 다스리겠으나,

5. THE TEACHINGS OF MOSES

96:5.1 (1057.6) Moses was an extraordinary combination of military leader, social organizer, and religious teacher. He was the most important individual world teacher and leader between the times of Machiventa and Jesus. Moses attempted to introduce many reforms in Israel of which there is no record. In the space of one man's life he led the polyglot horde of so-called Hebrews out of slavery and uncivilized roaming while h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birth of a nation and the perpetuation of a race.

96:5.2 (1057.7) There is so little on record of the great work of Moses because the Hebrews had no written language at the time of the exodus. The record of the times and doings of Moses was derived from the traditions extant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great leader.

96:5.3 (1058.1) Many of the advances which Moses made over and above the religion of the Egyptians and the surrounding Levantine tribes were due to the Kenite traditions of the time of Melchizedek. Without the teaching of Machiventa to Abraham and his contemporaries, the Hebrews would have come out of Egypt in hopeless darkness. Moses and his father-in-law, Jethro, gathered up the residue of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Melchizedek, and these teachings, joined to the learning of the Egyptians, guided Moses in the creation of the improved religion and ritual of the Israelites. Moses was an organizer; he selected the best in the religion and mores of Egypt and Palestine and, associating these practices with the traditions of the Melchizedek teachings, organized the Hebrew ceremonial system of worship.

96:5.4 (1058.2) Moses was a believer in Providence; he had become thoroughly tainted with the doctrines of Egypt concerning the supernatural control of the Nile and the other elements of nature. He had a great vision of God, but he was thoroughly sincere when he taught the Hebrews that, if they would obey God, “He will love you, bless you, and multiply you. He will multiply the fruit of your womb and the fruit of your land — the corn, wine, oil, and your flocks. You shall be prospered above all people, and the Lord your God will take away from you all sickness and will put none of the evil diseases of Egypt upon you.” He even said: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power to get wealth.” “You shall lend to many nations, but you shall not

그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식한 **히브리인**이 납득하도록, **엘 엘리온**, 즉 **지고자**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이 모세**가 애쓰는 모습은 정말로 애처로웠다. 그는 모여 있는 지도자들에게, “너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우레같이 소리쳤으며, 한편 혼합된 군중을 향해서는, “모든 신 중에서 너희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냐?”고 선언했다. **모세**는, 용감하게 주물과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호렙 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견줄만한 것을 너희가 본 일이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모세는, **야훼**가 자비롭다고 선포하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웅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족을 위압하기를 선호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주** 너희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은 **주**, 위대한 **하나님**, 강력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신다.” 게다가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죽이실 것이며; 너희가 복종하면 고쳐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거친 씨족들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법령에 복종하는” 조건에서만, 이 부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리라고 가르쳤다.

이 초기 시절에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의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 자**로; **주**는 전쟁하는 이, 즉 전쟁터의 **하나님**, 적들을 깨멸시키는 영광스런 능력의 존재로” 배웠다. “너희의 **주 하나님**은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 진영 {陣營} 한 가운데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족속**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적을 저주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우주적이고 인자한 **신격**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거의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체로, 그들의 일상적 **야훼** 개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부족 신들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하나님** 개념이었다. 그들의 **하나님** 개념은, 원시적이고, 미숙하고, 사람의 모습을 닮은 상태였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베두원** 부족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섬겼던 **호렙 산**과 사막의 신들에 대한, 어느 정도 미개한 관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제시했던, **하나님**에 대한 더 확장되고 탁월했던 통찰력은 곧 보이지 않게 됐으며, 한편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주물이었던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섰는데, 금송아지는 **팔레스틴** 목동들에게 **야훼**를 상징했다.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한 지휘권을 **예슈아**{여호수아}에게 넘겼을 때,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의 친족 후손들, 그리고 관계된 다른 부족들 중에서 수천 명을 모았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스스로 지탱하고 어느 정도 자치하며 목축을

borrow. You shall reign over many nations, but they shall not reign over you.”

96:5.5 (1058.3) But it was truly pitiful to watch this great mind of Moses trying to adapt his sublime concept of El Elyon, the Most High, to the comprehension of the ignorant and illiterate Hebrews. To his assembled leaders he thundered, “The Lord your God is one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while to the mixed multitude he declared, “Who is like your God among all the gods?” Moses made a brave and partly successful stand against fetishes and idolatry, declaring, “You saw no similitude on the day that your God spoke to you at Horeb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He also forbade the making of images of any sort.

96:5.6 (1058.4) Moses feared to proclaim the mercy of Yahweh, preferring to awe his people with the fear of the justice of God, saying: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a great God, a mighty and terrible God, who regards not man.” Again he sought to control the turbulent clans when he declared that “your God kills when you disobey him; he heals and gives life when you obey him.” But Moses taught these tribes that they would become the chosen people of God only on condition that they “kept all his commandments and obeyed all his statutes.”

96:5.7 (1058.5) Little of the mercy of God was taught the Hebrews during these early times. They learned of God as “the Almighty; the Lord is a man of war, God of battles, glorious in power, who dashes in pieces his enemies.” “The Lord your God walks in the midst of the camp to deliver you.” The Israelites thought of their God as one who loved them, but who also “hardened Pharaoh’s heart” and “cursed their enemies.”

96:5.8 (1058.6) While Moses presented fleeting glimpses of a universal and beneficent Deity to the children of Israel, on the whole, their day-by-day concept of Yahweh was that of a God but little better than the tribal gods of the surrounding peoples. Their concept of God was primitive, crude, and anthropomorphic; when Moses passed on, these Bedouin tribes quickly reverted to the semibarbaric ideas of their olden gods of Horeb and the desert. The enlarged and more sublime vision of God which Moses every now and then presented to his leaders was soon lost to view, while most of the people turned to the worship of their fetish golden calves, the Palestinian herdsman’s symbol of Yahweh.

96:5.9 (1059.1) When Moses turned over the command of the Hebrews to Joshua, he had already gathered up thousands of the collateral descendants of Abraham, Nahor, Lot, and other of the related tribes and had whipped them into a

하는 전사{戰士}들의 민족이 되도록 했다.

6. 모세가 죽은 후의 하나님 개념

모세가 죽자, 그의 고상한 **야훼** 개념은 급속도로 타락했다. **예슈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온전히 지혜롭고 인정 많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전통을 계속 간직했지만, 일반 대중은 사막에서 가졌던 옛 **야훼** 개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그리고 **신격** 개념이 이렇게 퇴보하는 경향은, 소위 **사사**{士師}라는 다양한 부족 족장이 연달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증가했다.

모세라는 비범한 인물의 매력은,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 개념의 영감{靈感}을 추종자들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유지시켰지만; 그들이 일단 **팔레스틴**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자, 유목민 목축업자에서 재빨리 변화하여,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농민이 됐다. 그리고 이런 생활 풍습의 진화와 종교 관점의 변화는,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특성에 다소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시내 산**의 엄격하고 미숙하고 가혹하고 우뢰 같이 소리치는 사막의 신{神}이 변형돼서, 후대에 나타난, 사랑, 은혜, 및 자비의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동안에, **히브리인**은 **모세**의 고귀한 교훈을 거의 잊게 됐다. 그들은 일신교 개념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유란시아**의 영적 진화에서 지극히 중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 즉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 **아들**이 육신화 하기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집단이 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예슈아는 절망적 상태가 되어, 부족원의 정신 속에 **지존자 야훼** 개념을 유지시키려 애썼고,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슈아**는, 믿지 않는 자기 민족에게 단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졌던 원래의 옛 종교를 아주 기꺼이 믿으려고 했지만, 신앙과 정의를 찾는 종교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예슈아**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랬다: “**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높았던 개념은, **야훼**를 “권능과 심판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때때로 선생이 외롭게 일어나서 **모세**의 신성 개념을 전파하곤 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사악한 너희 자녀는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self-sustaining and partially self-regulating nation of pastoral warriors.

6. THE GOD CONCEPT AFTER MOSES’

DEATH

96:6.1 (1059.2) Upon the death of Moses his lofty concept of Yahweh rapidly deteriorated. Joshua and the leaders of Israel continued to harbor the Mosaic traditions of the all-wise, beneficent, and almighty God, but the common people rapidly reverted to the older desert idea of Yahweh. And this backward drift of the concept of Deity continued increasingly under the successive rule of the various tribal sheiks, the so-called Judges.

96:6.2 (1059.3) The spell of the extraordinary personality of Moses had kept alive in the hearts of his followers the inspiration of an increasingly enlarged concept of God; but when they once reached the fertile lands of Palestine, they quickly evolved from nomadic herders into settled and somewhat sedate farmers. And this evolution of life practices and change of religious viewpoint demanded a more or less complete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ir conception of the nature of their God, Yahweh. During the times of the beginning of the transmutation of the austere, crude, exacting, and thunderous desert god of Sinai into the later appearing concept of a God of love, justice, and mercy, the Hebrews almost lost sight of Moses’ lofty teachings. They came near losing all concept of monotheism; they nearly lost their opportunity of becoming the people who would serve as a vital link in the spiritual evolution of Urantia, the group who would conserve the Melchizedek teaching of one God until the times of the incarnation of a bestowal Son of that Father of all.

96:6.3 (1059.4) Desperately Joshua sought to hold the concept of a supreme Yahweh in the minds of the tribesmen, causing it to be proclaimed: “As I was with Moses, so will I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nor forsake you.” Joshua found it necessary to preach a stern gospel to his disbelieving people, people all too willing to believe their old and native religion but unwilling to go forward in the religion of faith and righteousness. The burden of Joshua’s teaching became: “Yahweh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forgive your transgressions nor your sins.” The highest concept of this age pictured Yahweh as a “God of power, judgment, and justice.”

96:6.4 (1059.5) But even in this dark age, every now and then a solitary teacher would arise proclaiming the Mosaic concept of divinity: “You children of wickedness cannot serve the Lord, for he is a holy God.” “Shall mortal man be more just than God?”

창조주보다 더 순전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너희가 완전하신 **전능자**를 찾을 수 있느냐?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능자**와 접촉하면서,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

7. 시편과 욥기

족장과 사제들의 지도 하에, **히브리인**은 **팔레스틴**에서 영성하게 조직됐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막에서 가졌던 뒤떨어진 믿음으로 돌아갔고, 덜 진보된 **가나안**의 종교 풍습에 오염됐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방종한 상태에 빠졌으며, 그들의 **신격** 관념은, 어떤 살아남은 **살렘** 집단이 유지했고 **시편** 일부와 소위 **욥기**라는 책에 기록돼 있는, **이집트인** 및 **메소포타미아인**의 **하나님** 개념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시편은 20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작품이며; 많은 것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선생들이 썼다. **레반트** 사람이 자연 신들을 숭배하던 이 시절에, **지고자인 엘 엘리온**의 지존성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꽤 많이 있었다.

수집된 어떤 종교 문서도, 헌신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하나님** 관념을, **시편** 기록만큼 그렇게 풍성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놀랄만하게 수집된 이 경건한 문헌을 정독{精讀}하는 동안, 어떤 다른 단일 수집품도 그렇게 긴 세월을 망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독립된 각각의 찬양과 경배의 시의 출처와 연대{年代}를 고려할 수만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은, **아메넬**로부터 **이사야** 때에 이르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레반트** 전역에서 **살렘** 종교 신자들이 환영했던, 다양한 **하나님** 개념을 기록했다. **시편**에서는, 부족 신격의 미개한 개념으로부터 후대 **히브리인**의 크게 확장된 이상{理想}에 이르기까지, 온갖 국면의 **하나님** 개념이 서술돼 있는데, 그 중에 **야훼**는 사랑 많은 통치자이면서도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묘사된다.

이렇게 볼 때, **시편**의 이 작품들은, 20세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일찍이 모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경건한 감상의 구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찬송시의 경건한 영성{靈性}은 세상에 있는 신성시되는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욥기에 묘사된 다채로운 **신격**의 모습은, 거의 300년에 걸쳐서, 20명이 넘는 **메소포타미아** 종교 교사들이 창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소포타미아** 믿음의 수집품에서 발견되는 고상한 신성 개념을 너희가 읽게 되면, **팔레스틴**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참된 **하나님** 관념이 가장 잘 보존된

shall a man be more pure than his Maker?” “Can you by searching find out God? Can you find out the Almighty to perfection? Behold, God is great and we know him not. Touching the Almighty, we cannot find him out.”

7. PSALMS AND THE BOOK OF JOB

96:7.1 (1060.1) Under the leadership of their sheiks and priests the Hebrews became loosely established in Palestine. But they soon drifted back into the benighted beliefs of the desert and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less advanced Canaanite religious practices. They became idolatrous and licentious, and their idea of Deity fell far below the Egyptian and Mesopotamian concepts of God that were maintained by certain surviving Salem groups, and which are recorded in some of the Psalms and in the so-called Book of Job.

96:7.2 (1060.2) The Psalms are the work of a score or more of authors; many were written by Egyptian and Mesopotamian teachers. During these times when the Levant worshiped nature gods, there were still a goodly number who believed in the supremacy of El Elyon, the Most High.

96:7.3 (1060.3) No collection of religious writings gives expression to such a wealth of devotion and inspirational ideas of God as the Book of Psalms. And it would be very helpful if, in the perusal of this wonderful collection of worshipful literature,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the source and chronology of each separate hymn of praise and adoration, bearing in mind that no other single collection covers such a great range of time. This Book of Psalms is the record of the varying concepts of God entertained by the believers of the Salem religion throughout the Levant and embraces the entire period from Amenemope to Isaiah. In the Psalms God is depicted in all phases of conception, from the crude idea of a tribal deity to the vastly expanded ideal of the later Hebrews, wherein Yahweh is pictured as a loving ruler and merciful Father.

96:7.4 (1060.4) And when thus regarded, this group of Psalms constitutes the most valuable and helpful assortment of devotional sentiments ever assembled by man up to the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worshipful spirit of this collection of hymns transcends that of all other sacred books of the world.

96:7.5 (1060.5) The variegated picture of Deity presented in the Book of Job was the product of more than a score of Mesopotamian religious teachers extending over a period of almost three hundred years. And when you read the lofty concept of divinity found in this compilation of Mesopotamian beliefs, you will recognize that it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주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물에 충만하심을 종종 파악했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를 파악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그의 적들의 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보내는” 존재였으며; 자기에게 소속되고 복종하는 자녀를 번성케 하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다. “그는 교활한 자의 계락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해서 교활한 자를 잡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부르짖음이 **우르**에서만 일어났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성한 정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구원받음, 즉 신성한 은혜가 **우르**에서 전파됐다: “그는 뉘우치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내가 몸값을 받았으니, 그가 무저갱(無低坑)에 들어가지 않게 구출하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행치 않았으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혼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출하시며, 그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멜기세덱** 이후로, **레반트** 세계는 **엘리후**의 이 놀라운 교훈만큼, 그렇게 우렁차고 기운차게 하는 메시지, 인간이 구원받다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엘리후**는 **우르**의 선지자였고, **살렘** 신자들, 즉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멜기세덱** 거류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사제였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렘** 선교사들의 잔재는, 길게 이어진 **이스라엘** 선생들의 선구자가 나타날 때까지, **히브리** 민족이 아직 무절서 하던 기간에 진리의 빛을 꺼트리지 않았는데, 이 선생들은, 만유에게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할 때까지, 즉 **야훼** 개념의 진화가 최고조에 달한 때까지, 개념을 하나씩 쌓으면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was in the neighborhood of Ur of Chaldea that the idea of a real God was best preserved during the dark days in Palestine.

96:7.6 (1060.6) In Palestine the wisdom and all-pervasiveness of God was often grasped but seldom his love and mercy. The Yahweh of these times “sends evil spirits to dominate the souls of his enemies”; he prospers his own and obedient children, while he curses and visits dire judgments upon all others. “He disappoints the devices of the crafty; he takes the wise in their own deceit.”

96:7.7 (1060.7) Only at Ur did a voice arise to cry out the mercy of God, saying: “He shall pray to God and shall find favor with him and shall see his face with joy, for God will give to man divine righteousness.” Thus from Ur there is preached salvation, divine favor, by faith: “He is gracious to the repentant and says, ‘Deliver him from going down in the pit, for I have found a ransom.’ If any say, ‘I have sinned and perverted that which was right, and it profited me not,’ God will deliver his soul from going into the pit, and he shall see the light.” Not since the times of Melchizedek had the Levantine world heard such a ringing and cheering message of human salvation as this extraordinary teaching of Elihu, the prophet of Ur and priest of the Salem believers, that is, the remnant of the onetime Melchizedek colony in Mesopotamia.

96:7.8 (1061.1) And thus did the remnants of the Salem missionaries in Mesopotamia maintain the light of truth during the period of the disorganization of the Hebrew peoples until the appearance of the first of that long line of the teachers of Israel who never stopped as they built, concept upon concept, until they had achieved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the Universal and Creator Father of all, the acme of the evolution of the Yahweh concept.

96:7.9 (1061.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7편. 히브리인 가운데서 진화된 하나님 개념

⇨ 096

유란시아 책

09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7편

히브리인 가운데서 진화된 하나님 개념

섹션

소개

1. 사무엘--첫 히브리인 선지자
2. 엘리야와 엘리샤
3. 야훼와 바알
4. 아모스와 호세아
5. 제1 이사야
6. 두려움을 모르는 예레미야
7. 제2 이사야
8.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9. 히브리인의 역사
10. 히브리인의 종교

소개

히브리인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즉 그들은 오직 철학자만 납득할 수 있는 추상적 **신격**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개념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겨냈다. 보통 사람조차, 성숙된 **야훼** 개념을, 각 개인의 **아버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종족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었다.

멜기세덱 시대에 **살렘**에서 **하나님**의 인격 개념을 분명히 가르쳤지만, 이 개념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대에 모호하고 불분명했으며,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히브리인** 정신에서 대대로 겨우 차츰차츰 진화했을 뿐이다. **야훼**의 인격을 감지한 것은, 그 점진적 진화에서 **신격**의 여러 다른 속성을 감지한 것보다 훨씬 더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관념화(觀念化)는 거의 끊임없이 성장했으며, 이 개념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예수**의 교

PAPER 97

EVOLUTION OF THE GOD
CONCEPT AMONG THE HEBREWS

SECTIONS

Introduction

1. Samuel — First of the Hebrew Prophets
2. Elijah and Elisha
3. Yahweh and Baal
4. Amos and Hosea
5. The First Isaiah
6. Jeremiah the Fearless
7. The Second Isaiah
8. Sacred and Profane History
9. Hebrew History
10. The Hebrew Religion

INTRODUCTION

97:0.1 (1062.1) THE spiritual leaders of the Hebrews did what no others before them had ever succeeded in doing — they deanthropomorphized their God concept without converting it into an abstraction of Deity comprehensible only to philosophers. Even common people were able to regard the matured concept of Yahweh as a Father, if not of the individual, at least of the race.

97:0.2 (1062.2)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God, while clearly taught at Salem in the days of Melchizedek, was vague and hazy at the time of the flight from Egypt and only gradually evolved in the Hebraic mi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response to the teaching of the spiritual leaders. The perception of Yahweh's personality was much more continuous in its progressive evolution than was that of many other of the Deity attributes. From Moses to Malachi there occurred an almost unbroken ideational growth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the Hebrew mind, and this concept was

훈으로 인해 강화되고 찬미됐다.

eventually heightened and glorified by the teachings of Jesus about the Father in heaven.

1. 사무엘 --첫 히브리인 선지자

히브리인 족장들은, 부족 조직들이 동맹해서 중앙집권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팔레스틴** 주변 민족들의 적대적(敵對的) 압력 때문에 살아남 기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행정 권력이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선생과 개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를 경배 형태의 일부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가계(家系) 출신이었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모세** 시대에 믿었던 최고의 **아훼**를 경배하도록, 그가 온 **이스라엘**족속을 돌이키도록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거의 전반적 저항에 부딪치게 됐고,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 저항을 견딜 수 있게 했다. 그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며; 더 높은 **아훼** 개념을 섬기도록, **히브리인** 가운데서 비교적 더 지성적인 절반만 설득할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 고장의 부족 신들을 숭배하면서, 열등한 **아훼** 개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임시_변통 유형의 사람, 즉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하루아침에 여러 **바알**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용적 개혁가였다. 그는 순전히 강제적인 힘으로 진보를 이룩했으며; 거의 설교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는, 하루는 **바알** 사제를 조롱했고; 다음 날에는 포로 된 한 왕을 난도질해서 죽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믿었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주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나 **사무엘**이 **신격** 개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아훼**가 **변함없다**는, 틀림없는 완전성과 신성을 항상 동일하게 구현한다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에 **아훼**는, 질투심으로 변덕스러운, 이러이러하게 행했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됐지만; 이제는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능력** 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됐다. **신성**(神性)과 나누는 교제는 변치 않는다고 선포했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되풀이해서 말했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모든 진리, 안정성, 및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했다. **히브리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 즉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靈)인 어떤 초인간이라고 항상 간

1. SAMUEL — FIRST OF THE HEBREW PROPHETS

97.1.1 (1062.3) Hostile pressure of the surrounding peoples in Palestine soon taught the Hebrew sheiks they could not hope to survive unless they confederated their tribal organizations into a centralized government. And this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fforded a better opportunity for Samuel to function as a teacher and reformer.

97.1.2 (1062.4) Samuel sprang from a long line of the Salem teachers who had persisted in maintaining the truths of Melchizedek as a part of their worship forms. This teacher was a virile and resolute man. Only his great devotion, coupled with his extraordinary determination, enabled him to withstand the almost universal opposition which he encountered when he started out to turn all Israel back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of Mosaic times. And even then he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he won back to the service of the higher concept of Yahweh only the more intelligent half of the Hebrews; the other half continued in the worship of the tribal gods of the country and in the baser conception of Yahweh.

97.1.3 (1062.5) Samuel was a rough-and-ready type of man, a practical reformer who could go out in one day with his associates and overthrow a score of Baal sites. The progress he made was by sheer force of compulsion; he did little preaching, less teaching, but he did act. One day he was mocking the priest of Baal; the next, chopping in pieces a captive king. He devotedly believed in the one God, and he had a clear concept of that one God as creator of heaven and earth: “The pillars of the earth are the Lord’s, and he has set the world upon them.”

97.1.4 (1063.1) But the great contribution which Samuel mad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ity was his ringing pronouncement that Yahweh was *changeless*, forever the same embodiment of unerring perfection and divinity. In these times Yahweh was conceived to be a fitful God of jealous whims, always regretting that he had done thus and so; but now,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Hebrews sallied forth from Egypt, they heard these startling words, “The Strength of Israel will not lie nor repent,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repent.” Stability in dealing with Divinity was proclaimed. Samuel reiterated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Abraham and declared that the Lord God of Israel was the source of all truth, stability, and constancy. Always had the Hebrews looked upon their God as a man, a

주해 왔지만, 이제 그들은, 옛 **호렙**의 영이 창조자의 완전함을 갖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고양됨을 듣게 됐다. **사무엘**은, 진화하는 **하나님** 개념이, 변덕스런 사람의 정신과 필사자 실존의 변천을 뛰어넘는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부족 신들과 비슷한 개념으로부터, 전능하고 변화 없는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의 **감독관**이라는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즉 약속 이행을 믿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전파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구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확실하다.” 그리하여, 지존하신 **야훼** 경배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팔레스틴** 전역에 울려 퍼졌다. 활기찬 이 선생은 항상, “오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 같으신 이가 없으며, 당신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주로 물질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했다. **사무엘**이, “주께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가 가난한 자를 굴욕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를 높이 들어 왕자들과 함께 있게 해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감히 선언했을 때, 이는 **이스라엘족** 속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무엘**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절망하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部族) 신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했다. 그는 **야훼**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주로 **히브리인**, 즉 **야훼**가 택한 민족에 주로 국한됐다. 그러더라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개념이 다시 한 번 거룩하고 공정한 **신격**을 나타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백발의 늙은 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진보했는데,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주는 지식의 **하나님**이요, 행위를 저울에 달아 재신다. 주께서는 이 세상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며, 올바른 자에게는 그분 역시 올바르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자비의 빛이 밝아오더라도, 그것은 자비로운 자에게만 국한된다. 그가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발전했는데, 자기 민족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훈계했다: “주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를 속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야훼**의 성품에 대한 개념의 이런 점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이 활동할 때에도

superman, an exalted spirit of unknown origin; but now they heard the onetime spirit of Horeb exalted as an unchanging God of creator perfection. Samuel was aiding the evolving God concept to ascend to heights above the changing state of men's minds and the vicissitudes of mortal existence. Under his teaching, the God of the Hebrews was beginning the ascent from an idea on the order of the tribal gods to the ideal of an all-powerful and changeless Creator and Supervisor of all creation.

97.1.5 (1063.2) And he preached anew the story of God's sincerity, his covenant-keeping reliability. Said Samuel: "The Lord will not forsake his people." "He has made with us an everlasting covenant, ordered in all things and sure." And so, throughout all Palestine there sounded the call back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Ever this energetic teacher proclaimed, "You are great, O Lord God, for there is none like you, neither is there any God beside you."

97.1.6 (1063.3) Theretofore the Hebrews had regarded the favor of Yahweh mainly in terms of material prosperity. It was a great shock to Israel, and almost cost Samuel his life, when he dared to proclaim: "The Lord enriches and impoverishes; he debases and exalts. He raises the poor out of the dust and lifts up the beggars to set them among princes to make them inherit the throne of glory." Not since Moses had such comforting promises for the humble and the less fortunate been proclaimed, and thousands of despairing among the poor began to take hope that they could improve their spiritual status.

97.1.7 (1063.4) But Samuel did not progress very far beyond the concept of a tribal god. He proclaimed a Yahweh who made all men but was occupied chiefly with the Hebrews, his chosen people. Even so, as in the days of Moses, once more the God concept portrayed a Deity who is holy and upright. "There is none as holy as the Lord. Who can be compared to this holy Lord God?"

97.1.8 (1063.5) As the years passed, the grizzled old leader progressed in the understanding of God, for he declared: "The Lord is a God of knowledge, and actions are weighed by him.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showing mercy to the merciful, and with the upright man he will also be upright." Even here is the dawn of mercy, albeit it is limited to those who are merciful. Later he went one step further when, in their adversity, he exhorted his people: "Let us fall now into the hands of the Lord, for his mercies are great." "There is no restraint upon the Lord to save many or few."

97.1.9 (1063.6) And this gradu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character of Yahweh continued

계속됐다. 그들은 **야훼**를, 계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무엘**의 걸음과 도저히 발을 맞추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말년에 느끼게 됐던 **하나님**의 자비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야훼**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됐음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만유{萬有}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 시대의 주안점(主眼點)은 신성한 권능이었으며;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인**의 왕권을 차지할 왕을 조성하도록 고안된 어떤 종교를 전파했다. “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시며, 능력 있으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권능과 힘이 있으며, 만인을 위대하게 하실 수 있고 힘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와 그의 직계 후계자들 시대 동안, **하나님** 개념이 그러했다.

2. 엘리야와 엘리사

기원전 10세기경에 **히브리** 민족은 두 왕국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뉜 두 나라 모두, 분단으로 인한 전쟁 이후에도 비참하게 계속됐고 이미 확립된 영적 퇴폐의 복고적(復古的) 물결을 저지시키려고, 진리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이 노력했다. 그러나 **히브리** 종교를 발전시키려는 이 노력은, 정의를 향해서 단호하고 대담한 전사(戰士)였던 **엘리야**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엘리야**는, **사무엘** 시대에 필적할만한 **하나님** 개념을 북왕국에 부활시켰다. **엘리야**는, 진보된 **하나님** 개념을 제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그에 앞서 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가짜 신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 제단들을 뒤집어엎기 바빴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군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으며; 그의 과제는 **사무엘**이 당면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어려웠다.

엘리야가 부름을 받아서 떠난 후에, 신실한 동역자 **엘리사**가 그의 일을 떠맡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가야**의 매우 귀중한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틴**에 진리의 빛을 계속 비쳤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신격** 개념이 진보를 이룩하지 못했다. **히브리인**은 아직 **모세**의 이상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상류 계층이 최고 **야훼** 숭배로 돌아옴과 함께 막을 내렸으며, **사무엘**이 남겨둔 그 자리 근처에 **우주의 창조주** 개념이 회복된 것을 목격했다.

3. 야훼와 바알

under the ministry of Samuel's successors. They attempted to present Yahweh as a covenant-keeping God but hardly maintained the pace set by Samuel; they failed to develop the idea of the mercy of God as Samuel had later conceived it. There was a steady drift back toward the recognition of other gods, despite the maintenance that Yahweh was above all. “Yours is the kingdom, O Lord, and you are exalted as head above all.”

97:1.10 (1064.1) The keynote of this era was divine power; the prophets of this age preached a religion designed to foster the king upon the Hebrew throne.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victory and the majesty. In your hand is power and might, and you are able to make great and to give strength to all.” And this was the status of the God concept during the time of Samuel and his immediate successors.

2. ELIJAH AND ELISHA

97:2.1 (1064.2) In the tenth century before Christ the Hebrew nation became divided into two kingdoms. In both of these political divisions many truth teachers endeavored to stem the reactionary tide of spiritual decadence that had set in, and which continued disastrously after the war of separation. But these efforts to advance the Hebraic religion did not prosper until that determined and fearless warrior for righteousness, Elijah, began his teaching. Elijah restored to the northern kingdom a concept of God comparable with that held in the days of Samuel. Elijah had little opportunity to present an advanced concept of God; he was kept busy, as Samuel had been before him, overthrowing the altars of Baal and demolishing the idols of false gods. And he carried forward his reforms in the face of the opposition of an idolatrous monarch; his task was even more gigantic and difficult than that which Samuel had faced.

97:2.2 (1064.3) When Elijah was called away, Elisha, his faithful associate, took up his work and, with the invaluable assistance of the little-known Micaiah, kept the light of truth alive in Palestine.

97:2.3 (1064.4) But these were not times of progress in the concept of Deity. Not yet had the Hebrews ascended even to the Mosaic ideal. The era of Elijah and Elisha closed with the better classes returning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and witnessed the restoration of the idea of the Universal Creator to about that place where Samuel had left it.

3. YAHWEH AND BAAL

야훼 신자와 **바알** 추종자 사이에 오랜 세월 이어진 논쟁은, 종교 신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 이념의 충돌이었다.

팔레스틴 원주민은 땅 소유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남부 부족, 즉 방랑하는 **아라비아** 부족들은(곧 **야훼**를 경배하는 자들은) 땅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즉 씨족에게 준 **신격**의 선물로-- 간주했다. 그들은 땅을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훼**께서 ‘땅은 내 것이니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북부에 정착한 **가나안족속**은(곧 **바알** 숭배자들은)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았으며 저당 잡히곤 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자를 의미한다. **바알** 종파는 두 개의 주요 교리에 기초했는데: 첫째는, 재산의 교환, 계약, 및 서약을--즉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생각이었다--**바알**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었다. 양질의 곡식이 맺히는 것은 **바알**의 은혜라고 믿었다. 그 종파는 주로, 땅에, 즉 그 소유권과 비옥함에 관심을 가졌다.

바알 숭배자는 대개, 집, 땅, 및 노예를 소유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귀족이었고 도시에 살았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 각각 하나의 신성시되는 장소, 사제계층, 그리고 “성스런 여자들”, 즉 제례식에 이용되는 매춘부가 있었다.

땅에 대한 이런 기본적 견해 차이 외에도, **가나안족속**과 **히브리인**은, 사회, 경제, 도덕, 및 종교의 태도에서 심각한 적대감이 서서히 자라났다. 이런 사회경제적 논쟁은, **엘리아** 시대 이전에는 명확한 종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욕적인 이 선지자 시대부터, 그 문제는 더 명확해진 종교 계통 사이--곧 **야훼** 대(對) **바알**--의 투쟁거리가 됐으며, **야훼**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로 일신교 쪽으로 몰려갔다.

엘리아는, **야훼** **바알** 논쟁을, 땅 문제로부터 **히브리인**과 **가나안족속** 관념의 종교적 측면으로 전환시켰다. **아합** 왕이 **나봇** 가문의 땅을 차지할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죽였을 때, **엘리아**는 땅과 관계되는 옛 사회관행에 의거해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했고, **바알** 숭배자들에게 대항하는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이것은, 도시인의 지배에 항거하는 시골 사람들의 투쟁이기도 했다. **야훼**가 **엘로힘**이 된 것은, 주로 **엘리아**로 인해 이뤄졌다. 그 선지자는, 토지 개혁자로 출발해서 **신격**을 고양시킴으로 끝을 맺었다. **바알**은 숫자가 많았지만 **야훼**는 하나였다--일신교가 다신교를 이겼다.

4. 아모스와 호세아

부족(部族) 신이--곧 그토록 오랫동안 제물과 예식을 바쳤던 신, 즉 초기 **히브리인**의 **야훼**--

97.3.1 (1064.5) The long-drawn-out controversy between the believers in Yahweh and the followers of Baal was a socioeconomic clash of ideologies rather than a difference in religious beliefs.

97.3.2 (1064.6) The inhabitants of Palestine differed in their attitude toward private ownership of land. The southern or wandering Arabian tribes (the Yahwehites) looked upon land as an inalienable — as a gift of Deity to the clan. They held that land could not be sold or mortgaged. “Yahweh spoke, saying,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 the land is mine.’”

97.3.3 (1064.7) The northern and more settled Canaanites (the Baalites) freely bought, sold, and mortgaged their lands. The word Baal means owner. The Baal cult was founded on two major doctrines: First, the validation of property exchange, contracts, and covenants — the right to buy and sell land. Second, Baal was supposed to send rain — he was a god of fertility of the soil. Good crops depended on the favor of Baal. The cult was largely concerned with *land*, its ownership and fertility.

97.3.4 (1065.1) In general, the Baalites owned houses, lands, and slaves. They were the aristocratic landlords and lived in the cities. Each Baal had a sacred place, a priesthood, and the “holy women,” the ritual prostitutes.

97.3.5 (1065.2) Out of this basic difference in the regard for land, there evolved the bitter antagonisms of social, economic, moral, and religious attitudes exhibited by the Canaanites and the Hebrews. This socioeconomic controversy did not become a definite religious issue until the times of Elijah. From the days of this aggressive prophet the issue was fought out on more strictly religious lines — Yahweh vs. Baal — and it ended in the triumph of Yahweh and the subsequent drive toward monotheism.

97.3.6 (1065.3) Elijah shifted the Yahweh-Baal controversy from the land issue to the religious aspect of Hebrew and Canaanite ideologies. When Ahab murdered the Naboths in the intrigue to get possession of their land, Elijah made a moral issue out of the olden land mores and launched his vigorous campaign against the Baalites. This was also a fight of the country folk against domination by the cities. It was chiefly under Elijah that Yahweh became Elohim. The prophet began as an agrarian reformer and ended up by exalting Deity. Baals were many, Yahweh was *one* — monotheism won over polytheism.

4. AMOS AND HOSEA

97.4.1 (1065.4) A great step in the transition of the tribal god — the god who had so long been served

자기 자손의 죄와 부도덕성까지도 기꺼이 응징하는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아모스**가 큰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는 남부 산악지대에서 출현하여, 북부 부족들의 범죄, 술 취함, 그리고 억압과 부도덕성을 비난했다. **모세** 시대 이후로 **팔레스틴**에서 그토록 울려 퍼지는 진리가 선포된 적이 없었다.

아모스는 단순히 원상복귀하거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신격** 개념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조가 공표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전파했고, 소위 선택된 민족 가운데 있는 죄를 묵인하리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용감하게 공격했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국가적 공의와 도덕성이라는 이중 기준이 선언되는 것을 들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히브리인**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가, 그들의 삶에서 생기는 범죄와 죄를, 어떤 다른 민족의 경우보다 더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모스**는 **사무엘**과 **엘리아**의 엄격하고 공정한 **하나님**을 상상했지만, 또한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때, **히브리인**도 모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선민” 교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고, 그 당시 많은 **히브리인**이 이를 통렬히 비난했다.

아모스가 말했다: “산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킨 이, 일곱 별과 **오리온**을 지으신 그를 찾으라,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꿔서 아침이 되게 하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신다.” 그는, 건성으로 종교를 믿고 기회주의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한 동료들을 비난하면서, 변치 않는 **야훼**의 어김없는 응보를 묘사하려고 애쓰면서 행악자들에게 말했다: “저희가 음부에 파묻혀도 내가 거기서 저희를 취할 것이며; 저희가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저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적군 앞에서 포로가 돼도, 내가 거기서 응보의 칼을 휘둘러 줄 것이며, 그 칼이 저희를 무찌를 것이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손짓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행한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채질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채질할 것이다”고, **야훼**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아모스**는 청중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아모스는 **야훼**가 “만국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며, 제례식이 정의를 결코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족속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선생은, 둘에 맞아 죽기 전에, 최고의 **야훼** 교리를 보존시키기에 충분한 진리의 누룩을 퍼뜨렸으며; **멜기세덱** 계시가 더욱 진전하도록 보장했다.

호세아가 **아모스**의 뒤를 이었고, **모세**가 가르친 사랑의 **하나님**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써, 우주의 **하나님**이 응보하신다는 **아모스**의 교리를 이어받았다. **호세아**는, 제물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

with sacrifices and ceremonies, the Yahweh of the earlier Hebrews — to a God who would punish crime and immorality among even his own people, was taken by Amos, who appeared from among the southern hills to denounce the criminality, drunkenness, oppression, and immorality of the northern tribes. Not since the times of Moses had such ringing truths been proclaimed in Palestine.

97:4.2 (1065.5) Amos was not merely a restorer or reformer; he was a discoverer of new concepts of Deity. He proclaimed much about God that had been announced by his predecessors and courageously attacked the belief in a Divine Being who would countenance sin among his so-called chosen peopl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ays of Melchizedek the ears of man heard the denunciation of the double standard of national justice and moralit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Hebrew ears heard that their own God, Yahweh, would no more tolerate crime and sin in their lives than he would among any other people. Amos envisioned the stern and just God of Samuel and Elijah, but he also saw a God who thought no differently of the Hebrews than of any other nation when it came to the punishment of wrongdoing. This was a direct attack on the egoistic doctrine of the “chosen people,” and many Hebrews of those days bitterly resented it.

97:4.3 (1065.6) Said Amos: “He who formed the mountains and created the wind, seek him who formed the seven stars and Orion, who turns the shadow of death into the morning and makes the day dark as night.” And in denouncing his half-religious, timeserving, and sometimes immoral fellows, he sought to portray the inexorable justice of an unchanging Yahweh when he said of the evildoers: “Though they dig into hell, thence shall I take them; though they climb up to heaven, thence will I bring them down.” “And though they go into captivity before their enemies, thence will I direct the sword of justice, and it shall slay them.” Amos further startled his hearers when, pointing a reproving and accusing finger at them, he declared in the name of Yahweh: “Surely I will never forget any of your works.” “And I will sift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nations as wheat is sifted in a sieve.”

97:4.4 (1066.1) Amos proclaimed Yahweh the “God of all nations” and warned the Israelites that ritual must not take the place of righteousness. And before this courageous teacher was stoned to death, he had spread enough leaven of truth to save the doctrine of the supreme Yahweh; he had insured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Melchizedek revelation.

97:4.5 (1066.2) Hosea followed Amos and his doctrine of a universal God of justice by the resurrection of the Mosaic concept of a God of love. Hosea preached forgiveness through repentance, not by

서받을 수 있음을 전파했다. 그는 인자{仁慈}와 신성한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약혼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정의와 심판으로, 그리고 인자와 자비로 너희와 약혼할 것이다. 또한 나는 신실함으로 너희와 약혼할 것이다.” “나는 내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호세아는, **아모스**의 도덕적 경고를 충실히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나 그가 “내 민족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너희는 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역에 해당할 만큼 잔인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회개와 용서를 계속 전파하면서 말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고칠 것이며; 내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호세아**는 항상 희망과 용서를 선포했다. 그의 메시지는 늘 이랬다: “나는 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나만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되고 해서 그들 가운데 지은 범죄와 죄를 **야훼**가 용서치 않을 것임을 깨닫도록 **히브리인**의 민족 양심을 자극한 반면, **호세아**는, 신성한 연민과 인자{仁慈}에 대한 자비로운 화음{和音}에서 도입음{導入音}을 연주했고, 후일에 **이사야**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 화음을 아주 절묘하게 노래했다.

5. 제1 이사야

이때, 북부 씨족들 사이에서 개인의 죄와 민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 협박하듯 선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편 더러는 남왕국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1 **이사야**가 출현한 것은, **히브리** 나라들에서 양심과 의식이 이렇게 자극되기 시작할 때였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즉 무한한 지혜, 변함없이 완전한 신빙성을 계속 전파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묘사했다: “또한 내가 심판으로 저울의 줄을 삼고, 정의로 추를 삼을 것이다.” “너희의 슬픔과 두려움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고된 속박의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주**께서 휴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귀는 너희 뒤에서 울리는, ‘이것이 그 길이다, 여기로 걸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며; **주**는 내 힘이요 찬송이시니,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지금 와서 함께 따져보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움에 지배되고 혼이 갈급한 **히브리인**에게 이 선지자가 말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sacrifice. He proclaimed a gospel of loving-kindness and divine mercy, saying: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yes, I will betroth you to me 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and in loving-kindness and in mercies. I will even betroth you to me in faithfulness.”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is turned away.”

97:4.6 (1066.3) Hosea faithfully continued the moral warnings of Amos, saying of God, “It is my desire that I chastise them.” But the Israelites regarded it as cruelty bordering on treason when he said: “I will say to those who were not my people, ‘you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you are our God.’” He continued to preach repentance and forgiveness, saying,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is turned away.” Always Hosea proclaimed hope and forgiveness. The burden of his message ever was: “I will have mercy upon my people. They shall know no God but me, for there is no savior beside me.”

97:4.7 (1066.4) Amos quickened the national conscience of the Hebrews to the recognition that Yahweh would not condone crime and sin among them because they were supposedly the chosen people, while Hosea struck the opening notes in the later merciful chords of divine compassion and loving-kindness which were so exquisitely sung by Isaiah and his associates.

5. THE FIRST ISAIAH

97:5.1 (1066.5) These were the times when some were proclaiming threatenings of punishment against personal sins and national crime among the northern clans while others predicted calamity in retribution for the transgressions of the southern kingdom. It was in the wake of this arousal of conscience and consciousness in the Hebrew nations that the first Isaiah made his appearance.

97:5.2 (1066.6) Isaiah went on to preach the eternal nature of God, his infinite wisdom, his unchanging perfection of reliability. He represented the God of Israel as saying: “Judgment also will I lay to the line and righteousness to the plummet.” “The Lord will give you rest from your sorrow and from your fear and from the hard bondage wherein man has been made to serve.” “And your ears shall hear a word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for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th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97:5.3 (1066.7) Speaking to the fear-ridden and soul-hungry Hebrews, this prophet said: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의 빛이 임했고,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주의** 영이 내게 계시며; 그는 비탄에 잠긴 자를 싸매 주기 위해서, 즉 포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묶인 자에게는 옥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주**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정의의 외투로 나를 가리셨으니, 나는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은 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 당하셨고, 그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했다. 그가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구하셨다.”

이 **이사야**의 뒤를, **미가**와 **오바다**가 따랐는데, 그들은 혼을 만족시키는 그의 복음을 확립하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이 두 용감한 사자(使者)는, 사제에게 지배당한 **히브리인** 제례식을 담대하게 비난했고, 제물을 바치는 체계 전체를 겁 없이 공격했다.

미가는, “보상받기 위해 재판하는 통치자, 급료를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비난했다. 그는 미신과 제사장제도에서 해방될 날을 가르치면서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아무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의 메시지의 취지는 늘 이랬다: “내가 번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인가? **주**께서 천마리의 숫양과 큰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범죄 대신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 대신 내 육체의 열매를 바칠 것인가? 오 사람아, 그가 무엇이 선한지 내게 보이셨으니; 공정하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 외에,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때는 위대한 시대였으며; 정말로 감동적인 시대였는데, 2,500년보다 더 전에, 필사적 사람은 그런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들었고 더러는 믿었다. 제사장들의 완고한 저항이 없었다면, 이 선생들은 **히브리인**의 경배 제례식에서 피 흘리는 예식 절차 전체를 폐지시켰을 것이다.

6. 두려움을 모르는 예레미야

여러 선생이 **이사야**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동안,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야훼**를 국제화(國際化)시키는 일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야훼**가 **히브리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그는 **야훼**가 온 땅의 **하나님**,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국제화시키는 상승 파도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대담한 이 전도자는, **야훼**가 모든 나라의 **하**

Lord has risen upon you.”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tidings to the meek;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who are bound.” “I will greatly rejoice in the Lord,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and has covered me with his robe of righteousness.” “In all their afflictions he was afflicted, and the angel of his presence saved them. In h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med them.”

97:5.4 (1067.1) This Isaiah was followed by Micah and Obadiah, who confirmed and embellished his soul-satisfying gospel. And these two brave messengers boldly denounced the priest-ridden ritual of the Hebrews and fearlessly attacked the whole sacrificial system.

97:5.5 (1067.2) Micah denounced “the rulers who judge for reward and the priests who teach for hire and the prophets who divine for money.” He taught of a day of freedom from superstition and priestcraft, saying: “But every man shall sit under his own vine, and no one shall make him afraid, for all people will live, each one according to his understanding of God.”

97:5.6 (1067.3) Ever the burden of Micah's message was: “Shall I come before God with burnt offerings?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a thousand rams or with ten thousand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shown me,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And it was a great age; these were indeed stirring times when mortal man heard, and some even believed, such emancipating messages more than two and a half millenniums ago. And but for the stubborn resistance of the priests, these teachers would have overthrown the whole bloody ceremonial of the Hebrew ritual of worship.

6. JEREMIAH THE FEARLESS

97:6.1 (1067.4) While several teachers continued to expound the gospel of Isaiah, it remained for Jeremiah to take the next bold step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ahweh, God of the Hebrews.

97:6.2 (1067.5) Jeremiah fearlessly declared that Yahweh was not on the side of the Hebrews in their military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He asserted that Yahweh was God of all the earth, of all nations and of all peoples. Jeremiah's teaching was the crescendo of the rising wav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God of Israel; finally and

님이 고, **이집트인**을 위한 **오시리스**, **바벨론인**을 위한 **벨**, **앗수르인**을 위한 **아쉬르**, 또는 **블레셋족**을 위한 **다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침내 영구히 선포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의 종교는, 이 시대 무렵과 그 후에, 일신교의 부흥을 온 세상에 나눠주게 됐으며; 마침내 **야훼** 개념은 행성의 **신격** 수준으로, 심지어 시공우주의 위엄을 갖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동역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히브리인** 나라를 배제한 **야훼**를 생각하기 힘들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묘사했던, 공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선언했다: “그렇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따라서 나는 인자함으로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에게 고통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이라.”

대담한 이 선지자가 말했다: “우리 **주**는 의로 우시고, 능숙하게 충고하시며, 강력함으로 일하신다. 그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주시고 그의 방법에 따라서 주시려고, 사람들의 모든 자손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동안,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내 종이며 **바벨론**의 왕인 **느브갓네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불경스런 반역죄로 간주됐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충고하자, 제사장들과 집권자들은, 그를 지하 감옥의 비참한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7. 제2 이사야

히브리인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 사계계층의 단호한 행동만 없었다면, 그들의 확장되는 신학에 크게 유익함이 입증됐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 민족을 두둔하던 **야훼**는 영적 지도자들의 국제적인 지루한 설교로 시달렸다. 자기 민족 신(神)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제화된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확대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제사장들은 **유대인**을 선민(選民)으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으로, **히브리인** 역사상에서 그토록 장황한 전설을 꾸며내고, 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여러 배로 부풀리게 됐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은 **바벨론**의 전통과 전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변함없이 이 전설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역사에 명예와 영광을 반영시키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빌려온 **갈대아인** 이야기의 도덕적 격조와 영적 의미를 충실하게 개선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히브리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유대** 나라의 회

forever did this intrepid preacher proclaim that Yahweh was God of all nations, and that there was no Osiris for the Egyptians, Bel for the Babylonians, Ashur for the Assyrians, or Dagon for the Philistines. And thus did the religion of the Hebrews share in that renaissance of monotheism throughout the world at about and following this time; at last the concept of Yahweh had ascended to a Deity level of planetary and even cosmic dignity. But many of Jeremiah's associates found it difficult to conceive of Yahweh apart from the Hebrew nation.

97:6.3 (1067.6) Jeremiah also preached of the just and loving God described by Isaiah, declaring: “Yes,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erefore with loving-kindness have I drawn you.” “For he does not afflict willingly the children of men.”

97:6.4 (1067.7) Said this fearless prophet: “Righteous is our Lord, great in counsel and mighty in work. His eyes are open upon all the ways of all the sons of men, to give every one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 But it was considered blasphemous treason when, during the siege of Jerusalem, he said: “And now have I given these lands into the hand of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my servant.” And when Jeremiah counseled the surrender of the city, the priests and civil rulers cast him into the miry pit of a dismal dungeon.

7. THE SECOND ISAIAH

97:7.1 (1068.1) The destruction of the Hebrew nation and their captivity in Mesopotamia would have proved of great benefit to their expanding theology had it not been for the determined action of their priesthood. Their nation had fallen before the armies of Babylon, and their nationalistic Yahweh had suffered from the international preachments of the spiritual leaders. It was resentment of the loss of their national god that led the Jewish priests to go to such lengths in the invention of fables and the multiplication of miraculous appearing events in Hebrew history in an effort to restore the Jews as the chosen people of even the new and expanded idea of an internationalized God of all nations.

97:7.2 (1068.2) During the captivity the Jews were much influenced by Babylonian traditions and legends, al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unfailingly improved the moral tone and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Chaldean stories which they adopted, notwithstanding that they invariably distorted these legends to reflect honor and glory upon the ancestry and history of Israel.

97:7.3 (1068.3) These Hebrew priests and scribes had a single idea in their minds, and that was the

복, 즉 **히브리** 전통을 영화롭게 하고, 종족의 역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서양** 세계의 그토록 넓은 지역에 심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이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들은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성시되는 책을 쓰겠다고 공언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 돼있는 동료들의 저하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고안된 교과서를 준비했던 것뿐이다. 그들은 동포의 민족정신과 사기 증대를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과 기타 문헌들을 모아서, 마치 오류가 없는 교훈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할만한 지침서를 만들게 됐다.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유대인** 사제들은 이 문헌을 아낌없이 이용해 먹었지만, 제1 **이사야**가 가진 응보, 사랑, 정의, 및 자비의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한, 불굴의 젊은 제2 **이사야**가 나타남으로써, 동료 포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크게 희망 받았다. 그는 또한, **야훼**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 가운데서도 똑같이 개종자를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 이론을 전파했다. 그리고 이 젊은 전도자는 자신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적대적이고 앙심 품은 제사장들은, 이 교훈이 제1 **이사야**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으나,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순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제1 **이사야**가 쓴 작품 사이에 집어넣게 됐다. 그리하여 제2 **이사야**의 작품은 그 이름을 지닌 책에서 발견될 수 있고, 40장부터 55장 끝까지 포함한다.

마키벤타로부터 **예수** 시대까지, 어떤 선지자나 종교 선생도, 이 포로기에 제2 **이사야**가 선포했던 귀중한 **하나님** 개념을 달성치 못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선포한 것은, 작은, 인격화된, 사람이_만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 “보라, 그가 섬들을 티끌처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인간 선생들이 참된 **하나님**을 필사적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됐다. 제1 **이사야**처럼, 이 지도자는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을 전파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에 뒀다. 내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며; 사람이 살도록 조성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 선지자가 말했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은 죽어갈 지라도, 내 의(義)는 영원히 지속되고, 내 구원은 세대마다 지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낙담치 마라.” “나 외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원** 주인-- **하나님**이 없다.

rehabilitation of the Jewish nation, the glorification of Hebrew traditions, and the exaltation of their racial history. If there is resentment of the fact that these priests have fastened their erroneous ideas upon such a large part of the Occidental worl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y did not intentionally do this; they did not claim to be writing by inspiration; they made no profession to be writing a sacred book. They were merely preparing a textbook designed to bolster up the dwindling courage of their fellows in captivity. They were definitely aiming at improving the national spirit and morale of their compatriots. It remained for later-day men to assemble these and other writings into a guide book of supposedly infallible teachings.

97:7.4 (1068.4) The Jewish priesthood made liberal use of these writings subsequent to the captivity, but they were greatly hindered in their influence over their fellow captives by the presence of a young and indomitable prophet, Isaiah the second, who was a full convert to the elder Isaiah's God of justice, love, righteousness, and mercy. He also believed with Jeremiah that Yahweh had become the God of all nations. He preached these theories of the nature of God with such telling effect that he made converts equally among the Jews and their captors. And this young preacher left on record his teachings, which the hostile and unforgiving priests sought to divorce from all association with him, although sheer respect for their beauty and grandeur led to their incorporation among the writings of the earlier Isaiah. And thus may be found the writings of this second Isaiah in the book of that name, embracing chapters forty to fifty-five inclusive.

97:7.5 (1068.5) No prophet or religious teacher from Machiventa to the time of Jesus attained the high concept of God that Isaiah the second proclaimed during these days of the captivity. It was no small, anthropomorphic, man-made God that this spiritual leader proclaimed. “Behold he takes up the isles as a very little thing.” “An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higher than your thoughts.”

97:7.6 (1069.1) At last Machiventa Melchizedek beheld human teachers proclaiming a real God to mortal man. Like Isaiah the first, this leader preached a God of universal creation and upholding. “I have made the earth and put man upon it. I have created it not in vain; I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there is no God beside me.” Speaking for the Lord God of Israel, this new prophet said: “The heavens may vanish and the earth wax old, but my righteousness shall endure forever and my salv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ear you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There is no God beside me — a just God and a Savior.”

유대인 포로를 위로하고, 마찬가지로 그 후로 허다한 사람들을 늘 위로한 말씀은 이랬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되찾았고,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물을 지나갈 때, 너는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자가 제 자식에게 연민의 정이 없다고 해서, 젖먹는 제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그렇다, 여자는 잊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잊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며; 내가 내 손의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후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살렘의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 드러내는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그가 목동처럼 자기 양떼를 먹이실 것이며; 양들을 팔로 모으고 품에 안아 옮기실 것이다. 약한 자에게는 그가 능력을 주시며, 힘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받게 될 것이며;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산을 오를 것이며; 뛰어가더라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는, 확장되는 최고 **아훼** 개념의 복음을 멀리까지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묘사하는 웅변술에서, **모세**와 경쟁할 만 했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묘사함에서 시적(詩的)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소개한 적이 없었다. **이사야**의 글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착되기 이전에 필사적 사람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장엄하고 참되게 제시한 영적 개념이었다. 그가 **신격**을 묘사한 것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영원 속에 거하는 높고 고상한 존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또한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하지만 당당한 이 선지자가, 신(神)의 불변성, 즉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계속 훈계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에게 새로운 교리였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가 선언했다.

이 대담한 선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말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 받은 각 사람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며, 그들은 내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범죄를 지워버리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아니 할 것이다.”

이 위대한 **히브리인**이 민족의 **하나님**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동안,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을 선포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하늘들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라”고 말했다.

97.7.7 (1069.2) And it comforted the Jewish captives, as it has thousands upon thousands ever since, to hear such words as: “Thus says the Lord, ‘I have created you,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since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Can a woman forget her suckling child that she should not have compassion on her son? Yes, she may forget, yet will I not forget my children, for behold I have graven them upon the palms of my hands; I have even covered them with the shadow of my hands.”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s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up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97.7.8 (1069.3) Listen again to the gospel of this new revelation of the God of Salem: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shall gather the lambs in his arms and carry them in his bosom. He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o those who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97.7.9 (1069.4) This Isaiah conducted a far-flung propaganda of the gospel of the enlarging concept of a supreme Yahweh. He vied with Moses in the eloquence with which he portrayed the Lord God of Israel as the Universal Creator. He was poetic in his portrayal of the infinite attributes of the Universal Father. No more beautiful pronouncements about the heavenly Father have ever been made. Like the Psalms, the writings of Isaiah are among the most sublime and true presentations of the spiritual concept of God ever to greet the ears of mortal man prior to the arrival of Michael on Urantia. Listen to his portrayal of Deity: “I am the high and lofty one who inhabits eternity.”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beside me there is no other God.” “An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neithe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And it was a new doctrine in Jewry when this benign but commanding prophet persisted in the preachment of divine constancy, God’s faithfulness. He declared that “God would not forget, would not forsake.”

97.7.10 (1069.5) This daring teacher proclaimed that man was very closely related to God, saying: “Every one who is called by my name I have created for my glory, and they shall show forth my praise. I, even I, am he who blots out thei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their sins.”

97.7.11 (1069.6) Hear this great Hebrew demolish the concept of a national God while in glory he proclaims the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of whom he says, “The heavens are my throne, and

그럼에도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웅대하며 불가사의하다. 사막의 **베두원**이 가졌던, 화내고 복수심에 불타며 질투하는 **야훼**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최고이며 보편적인 새 **야훼** 개념이 필사적 사람의 정신 속에 나타나게 됐고, 인간의 눈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됐다. 신의 응보를 깨닫는 것이, 원시적 마술과 생물학적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마침내 법칙과 질서가 있는 우주를 알게 됐고, 신뢰할만하고 궁극적인 속성을 가진 우주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승고한 **하나님**을 전파한 이 전도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영혼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생은, 동시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더했다: “그리고 **주**께서는 너를 계속 인도하고 너의 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너는 물 댄 동산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이 홍수처럼 밀려오면, **주**의 영이 그에 맞서서 방어 물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멜기세덱**의 복음과, 신뢰감을 조성하는 **살렘** 종교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선견지명이 있고 용감한 **이사야**는, 최고 **야훼**, 즉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통치자이며, 모든 인류에게 애정 깊으신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보편적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탁월한 묘사가, 민족주의적 **야훼**를 효과적으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 중대한 시절 이후로는 늘, **서양**에서 가장 고상한 **하나님** 개념은, 보편적 응보, 신성한 자비, 및 영원한 정의를 포함했다. 이 위대한 선생은, 뛰어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건줄 데 없는 우아함과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유를 _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묘사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선지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귀 기울이는 자기 민족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이 제2 **이사야**는 약속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종족의 자기중심적인 많은 잘못된 개념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제사장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민족주의를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두 **이사야**의 교훈은,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도록 길을 예비했을 것이다.

the earth is my footstool.” And Isaiah's God was none the less holy, majestic, just, and unsearchable. The concept of the angry, vengeful, and jealous Yahweh of the desert Bedouins has almost vanished. A new concept of the supreme and universal Yahweh has appeared in the mind of mortal man, never to be lost to human view. The realization of divine justice has begun the destruction of primitive magic and biologic fear. At last, man is introduced to a universe of law and order and to a universal God of dependable and final attributes.

97:7.12 (1070.1) And this preacher of a supernal God never ceased to proclaim this *God of love*.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 also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and humble spirit.” And still further words of comfort did this great teacher speak to his contemporaries: “And the Lord will guide you continually and satisfy your soul. You shall be like a 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whose waters fail not. And if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will lift up a defense against him.” And once again did the fear-destroying gospel of Melchizedek and the trust-breeding religion of Salem shine forth for the blessing of mankind.

97:7.13 (1070.2) The farseeing and courageous Isaiah effectively eclipsed the nationalistic Yahweh by his sublime portraiture of the majesty and universal omnipotence of the supreme Yahweh, God of love, ruler of the universe, and affectionate Father of all mankind. Ever since those eventful days the highest God concept in the Occident has embraced universal justice, divine mercy, and eternal righteousness. In superb language and with matchless grace this great teacher portrayed the all-powerful Creator as the all-loving Father.

97:7.14 (1070.3) This prophet of the captivity preached to his people and to those of many nations as they listened by the river in Babylon. And this second Isaiah did much to counteract the many wrong and racially egoistic concepts of the mission of the promised Messiah. But in this effort he was not wholly successful. Had the priests not dedicated themselves to the work of building up a misconceived nationalism, the teachings of the two Isaiahs would have prepared the way for the recognition and reception of the promised Messiah.

8.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히브리인의 체험에 관한 기록을 신성한 역사로 보고, 나머지 세상의 기타 진행사항을 세속 역사로 보려는 관습이, 역사를 해석할 때 인간 정신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유대인**의 세속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바벨론**에 유배됐던 제사장들

8. SACRED AND PROFANE HISTORY

97:8.1 (1070.4) The custom of looking upon the record of the experiences of the Hebrews as sacred history and upon the transactions of the rest of the world as profane history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confusion existing in the human mind as to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this difficulty arises because there is no secular history of the Jews.

이, **하나님**이 **히브리인**에게 기적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가정되는 새로운 기록, 즉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의 새 기록을 준비한 후에, 그들은 **히브리인** 사건들과 관련되는 현존 기록--곧 **히브리인** 역사에서 다소 정확한 다른 몇몇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유다** 왕들의 행적” 같은 책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없애버렸다.

세속 역사가 지독하게 억압한 것과 꿈쩍 못하고 강요당한 것이, 포로가 되고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서 그토록 공포에 빠뜨렸는지, 그래서 자기네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고 개작하려고 애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민족의 복잡한 체험 기록을 간단히 살펴봐야 하겠다. **유대인**은, 삶에서 비{非}신학적인 적당한 사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끔찍한 벌을 받고, 의로우면 신성한 보상을 받는다는, 자신의 원래 개념 및 **이집트** 개념으로 고집하고 있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전도서**의 노골적 염세주의는, **섭리**를 믿는 지나친 이 낙관적 믿음에 대한 현명한 세속적 반응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통치자가 지배한 500년은, 끈기 있고 오래 건디는 **유대인**에게조차 너무 가혹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외치기 시작했다.“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경전**(經典)을 탐구하는 동안에, 성실한 **유대인**의 혼돈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옛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고 구출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민족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명기**를 기록한 서기관은,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는-- **중대한 선택**을 묘사했다. 제1 **이사야**는 인정 많은 왕_구원자를 전파했다. **에레미야**는 --마음 판에 계약을 새기는-- 내적{內的} 정의의 시대를 선포했다. 제2 **이사야**는, 제물을 바치고 속죄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에스겔**은, 헌신적 봉사를 통한 구출을 전파했고, **에스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은 계속 노예 상태였고, 해방은 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 **다니엘**이 임박한 “위기”라는--곧 큰 형상을 깨뜨리고 정의가 영원토록 지배하는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 즉시 설립되는 것이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잘못된 희망이 그토록 심각한 인종적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무 혼돈을 일으킨 나머지, 신성한 **낙원 아들**이 마침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곧 **사람의 아들**로 육신화 되어-- 자신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의 사명과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After the priests of the Babylonian exile had prepared their new record of God's supposedly miraculous dealings with the Hebrews, the sacred history of Israel as portrayed in the Old Testament, they carefully and completely destroyed the existing records of Hebrew affairs — such books as “The Doings of the Kings of Israel” and “The Doings of the Kings of Judah,” together with several other more or less accurate records of Hebrew history.

97:8.2 (1070.5)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devastating pressure and the inescapable coercion of secular history so terrorized the captive and alien-ruled Jews that they attempted the complete rewriting and recasting of their history, we should briefly survey the record of their perplexing national experience.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Jews failed to evolve an adequate nontheologic philosophy of life. They struggled with their original and Egyptian concept of divine rewards for righteousness coupled with dire punishments for sin. The drama of Job was something of a protest against this erroneous philosophy. The frank pessimism of Ecclesiastes was a worldly wise reaction to these overoptimistic beliefs in Providence.

97:8.3 (1071.1) But five hundred years of the overlordship of alien rulers was too much for even the patient and long-suffering Jews. The prophets and priests began to cry: “How long, O Lord, how long?” As the honest Jew searched the Scriptures, his confusion became worse confounded. An olden seer promised that God would protect and deliver his “chosen people.” Amos had threatened that God would abandon Israel unless they re-established their standards of national righteousness. The scribe of Deuteronomy had portrayed the Great Choice — as between the good and the evil, the blessing and the curse. Isaiah the first had preached a beneficent king-deliverer. Jeremiah had proclaimed an era of inner righteousness — the covenant written on the tablets of the heart. The second Isaiah talked about salvation by sacrifice and redemption. Ezekiel proclaimed deliverance through the service of devotion, and Ezra promised prosperity by adherence to the law. But in spite of all this they lingered on in bondage, and deliverance was deferred. Then Daniel presented the drama of the impending “crisis” — the smiting of the great image and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the everlasting reign of righteousness, the Messianic kingdom.

97:8.4 (1071.2) And all of this false hope led to such a degree of racial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that the leaders of the Jews were so confused they failed to recognize and accept the mission and ministry of a divine Son of Paradise when he presently came to them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 incarnated as the Son of Man.

모든 현대 종교는, 인간 역사의 어떤 시기들에 대해서 초자연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개입하는 손을 인간 사건들의 흐름 속에 섭리로 여러 차례 밀어 넣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신학의 교의와 종교적 미신을, 이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적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초자연적 침전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속 역사를 소위 신성한 역사로 바꾸지는 않는다.

신약 성경 저자들과 후대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선의의 뜻으로 **유대인** 선지자들을 불가사의한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히브리인**의 역사의 왜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역사는, **유대인** 및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모두에게 비참하게 이용당했다. **히브리인**의 세속 역사는 철저하게 교의화{敎義化} 돼왔다. 그것은 신성한 역사라는 꾸며낸 이야기로 바뀌었으며,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도덕 개념 및 종교 교훈과 철저하게 묶이게 됐다.

히브리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을 간단히 되새겨 본다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들 민족의 일상적인 세속 역사를, 꾸며낸 신성한 역사로 바꾸려고, 기록된 사실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토록 심하게 뜯어고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9. 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이룬 적이 전혀 없었다--**팔레스틴**에 정착한 지파는 셋 또는 넷에 불과했다. **히브리인** 국가는, 소위 **이스라엘족속**과 **가나안족속**이 결합한 결과로 있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희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족속**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냈다.” **히브리인**은 **가나안족속**을 **팔레스틴** 밖으로 쫓아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에 대한 제사장들의 기록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서슴없이 주장했다.

이스라엘족속 같은 의식{意識}은, **에브라임** 산지{山地}에서 기원됐으며; 후대의 **유대인** 의식은 **유다**라는 남부 씨족에서 유래했다. **유대인**(곧 **유다족속**)은 항상 북부의 **이스라엘족속**(곧 **에브라임족속**)의 이력{履歷}을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려 했다.

히브리인의 과장된 역사는, **암몬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동료 지파 사람들-- 곧 **길르앗족속**--을 침공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사울**이 북부 씨족들을 소집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는 3,000명 정도의 군사로 적을 무찔렀으며, 이 공로로 인해 산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유배된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사울**의 군대를 330,000명으로 부풀렸고, 그 전투에 참여한 지파

97:8.5 (1071.3) All modern religions have seriously blundered in the attempt to put a miraculous interpretation on certain epochs of human history. While it is true that God has many times thrust a Father's hand of providential intervention into the stream of human affairs, it is a mistake to regard theologic dogmas and religious superstition as a supernatural sedimentation appearing by miraculous action in this stream of human history. The fact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does not convert secular history into so-called sacred history.

97:8.6 (1071.4) New Testament authors and later Christian writers further complicated the distortion of Hebrew history by their well-meant attempts to transcendentalize the Jewish prophets. Thus has Hebrew history been disastrously exploited by both Jewish and Christian writers. Secular Hebrew history has been thoroughly dogmatized. It has been converted into a fiction of sacred history and has become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moral concepts and religious teachings of the so-called Christian nations.

97:8.7 (1071.5) A brief recital of the high points in Hebrew history will illustrate how the facts of the record were so altered in Babylon by the Jewish priests as to turn the everyday secular history of their people into a fictitious and sacred history.

9. HEBREW HISTORY

97:9.1 (1071.6) There never were twelve tribes of the Israelites — only three or four tribes settled in Palestine. The Hebrew nation came into being as the result of the union of the so-called Israelites and the Canaanites. “And the children of Israel dwelt among the Canaanites. And they took their daughters to be their wives and gave their daughters to the sons of the Canaanites.” The Hebrews never drove the Canaanites out of Palestine, notwithstanding that the priests' record of these things unhesitatingly declared that they did.

97:9.2 (1071.7) The Israelitish consciousness took origin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he later Jewish consciousness originated in the southern clan of Judah. The Jews (Judahites) always sought to defame and blacken the record of the northern Israelites (Ephraimites).

97:9.3 (1072.1) Pretentious Hebrew history begins with Saul's rallying the northern clans to withstand an attack by the Ammonites upon their fellow tribesmen — the Gileadites — east of the Jordan. With an army of a little more than three thousand he defeated the enemy, and it was this exploit that led the hill tribes to make him king. When the exiled priests rewrote this story, they raised Saul's

명단에 “**유다**”를 덧붙였다.

암몬족속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은 그 군대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됐다.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신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을 나중에 삽입했다. 그들은 **다윗**의 **유다** 왕권을 “신성한 계통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심한 왜곡은 **다윗**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울**이 **암몬족속**을 무찌른 후에, (그는 이 공을 **야훼**에게 돌렸지만) **블레셋족속**이 긴장하게 됐고, 북부 씨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윗**과 **사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었다. **다윗**과 600인은 **블레셋족속** 동맹에 가입했고, **에스드랄론** 해안선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블레셋족속**은 **가드**에서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라고 명했는데; 그들은 그가 **사울**에게 동조할 것을 염려했다. **다윗**은 물러났으며; **블레셋족속**이 공격해서 **사울**을 격퇴시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충성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의 군대는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잡다한 불평꾼들이었는데,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피해서 달아난 자였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블레셋족속**에게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가나안족속**이 보기에 **야훼**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 보통은, **사울**의 패배는 **야훼**를 변심한 탓이라고 했겠지만, 이때 **유다족속** 편집자들은, 그것을 잘못된 제례식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한 배경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전통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소규모의 군대를 가진 **다윗**은 **히브리인** 성읍이 아닌 **헤브론**에 근거지를 뒀다. 이윽고 그의 동족이 그를 **유다**라는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선포했다. **유다**는 대체로 **히브리인**이 아닌 출신성분--**곤겐족속**, **갈렙족속**, **여부스족속**, 및 기타 **가나안족속**--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고--곤목축업자였고-- 그래서 땅 소유권에 대한 **히브리인** 관념에 동조했다. 그들은 사막 씨족들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사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의 측근 추종자들이(곧 그의 군대가) 그를 왕으로 만든 세속 이야기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부주의로 기록에 남게 됐는데, 그 제사장들은 나중에 신성한 역사에 관해서 길고도 무미건조한 설명을 만들어 냈으며, 선지자 **사무엘**이 신성한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윗**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진행해서 정교하고 엄숙한 예식에 따라 **히브리인**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는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선포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army to 330,000 and added “Judah” to the list of tribes participating in the battle.

97:9.4 (1072.2) Immediately following the defeat of the Ammonites, Saul was made king by popular election by his troops. No priest or prophet participated in this affair. But the priests later on put it in the record that Saul was crowned king by the prophet Samuel in accordance with divine directions. This they did in order to establish a “divine line of descent” for David’s Judahite kingship.

97:9.5 (1072.3) The greatest of all distortions of Jewish history had to do with David. After Saul’s victory over the Ammonites (which he ascribed to Yahweh) the Philistines became alarmed and began attacks on the northern clans. David and Saul never could agree. David with six hundred men entered into a Philistine alliance and marched up the coast to Esdraelon. At Gath the Philistines ordered David off the field; they feared he might go over to Saul. David retired; the Philistines attacked and defeated Saul. They could not have done this had David been loyal to Israel. David’s army was a polyglot assortment of malcontents, being for the most part made up of social misfits and fugitives from justice.

97:9.6 (1072.4) Saul’s tragic defeat at Gilboa by the Philistines brought Yahweh to a low point among the gods in the eyes of the surrounding Canaanites. Ordinarily, Saul’s defeat would have been ascribed to apostasy from Yahweh, but this time the Judahite editors attributed it to ritual errors. They required the tradition of Saul and Samuel as a background for the kingship of David.

97:9.7 (1072.5) David with his small army made his headquarters at the non-Hebrew city of Hebron. Presently his compatriots proclaimed him king of the new kingdom of Judah. Judah was made up mostly of non-Hebrew elements — Kenites, Calebites, Jebusites, and other Canaanites. They were nomads — herders — and so were devoted to the Hebrew idea of land ownership. They held the ideologies of the desert clans.

97:9.8 (1072.6) The difference between sacred and profane history is well illustrated by the two differing stories concerning making David king as they are found in the Old Testament. A part of the secular story of how his immediate followers (his army) made him king was inadvertently left in the record by the priests who subsequently prepared the lengthy and prosaic account of the sacred history wherein is depicted how the prophet Samuel, by divine direction, selected David from among his brethren and proceeded formally and by elaborate and solemn ceremonies to anoint him king over the Hebrews and then to proclaim him Saul’s successor.

97:9.9 (1072.7)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 조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미 기록돼 있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여러 번 있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딸과, 그 다음에는 **에돔족속**이며 부자인 **나발**의 과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술** 왕인 **달매**의 딸과 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그는 **헷족속** 아내 **밋세바** 말고도 **여부스**에 속하는 여섯 명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민족으로부터, **다윗**은, **에브라임족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라지는 북부 왕국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유다** 왕국을 세웠다는 허구를 꾸며냈다. **유다**라는 **다윗**의 국제적 부족은, **유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는데; 그럼에도 강요당한 **에브라임**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군사적 협박을 가한 후에, **다윗**은 **여부스족**과 계약을 맺었고, 결합된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곧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곳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매우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읍이었다. **블레셋족속**이 자각받아서 곧 **다윗**을 공격했다. 격심한 전투가 있는 후에 그들은 패배했고, **야훼**는 다시 한 번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확립됐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대부분이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므로, **야훼**는 어쩔 수 없이 그 영광의 일부를 **가나안** 신들과 나누게 됐다. 그리하여 너희가 보는 기록에 (**유다족속** 편집자들이 간과했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런 말이 기록돼 있다: “**야훼**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방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병사들 가운데 80퍼센트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가나안족속**이 **에브라임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도, **사울**이 **가나안족속**의 성읍인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이 **길보아**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이것 때문에 **야훼**가 그를 버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다윗**은 **블레셋족속**에 대항해서 **케일라**라는 **가나안** 성읍을 방어했고, 그 다음에 자기 수도를 **가나안** 성읍에 세웠다. **다윗**은 **가나안족속**과 타협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기브온족속**에게 내줘서 목매달게 했다.

블레셋족속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야훼**의 법궤”를 손에 넣게 되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야훼** 경배를 공식화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웃 부족에게--곧 **에돔족속**, **모압족속**, **암몬족속**, 및 **시리아인**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했다.

다윗의 부도덕한 정치 조직은, **히브리인**의 사회관행과는 반대로, 북쪽에 있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으며, 전에 **블레셋족속**이 거뒀던

97:9.9 (1072.6) So many times did the priests, after preparing their fictitious narratives of God's miraculous dealings with Israel, fail fully to delete the plain and matter-of-fact statements which already rested in the records.

97:9.10 (1072.7) David sought to build himself up politically by first marrying Saul's daughter, then the widow of Nabal the rich Edomite, and then the daughter of Talmi, the king of Geshur. He took six wives from the women of Jebus, not to mention Bathsheba, the wife of the Hittite.

97:9.11 (1073.1) And it was by such methods and out of such people that David built up the fiction of a divine kingdom of Judah as the successor of the heritage and traditions of the vanishing northern kingdom of Ephraimite Israel. David's cosmopolitan tribe of Judah was more gentile than Jewish; nevertheless the oppressed elders of Ephraim came down and “anointed him king of Israel.” After a military threat, David then made a compact with the Jebusites and established his capital of the united kingdom at Jebus (Jerusalem), which was a strong-walled city midway between Judah and Israel. The Philistines were aroused and soon attacked David. After a fierce battle they were defeated, and once more Yahweh was established as “The Lord God of Hosts.”

97:9.12 (1073.2) But Yahweh must, perforce, share some of this glory with the Canaanite gods, for the bulk of David's army was non-Hebrew. And so there appears in your record (overlooked by the Judahite editors) this telltale statement: “Yahweh has broken my enemies before me. Therefore he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Baal-Perazim.” And they did this because eighty per cent of David's soldiers were Baalites.

97:9.13 (1073.3) David explained Saul's defeat at Gilboa by pointing out that Saul had attacked a Canaanite city, Gibeon, whose people had a peace treaty with the Ephraimites. Because of this, Yahweh forsook him. Even in Saul's time David had defended the Canaanite city of Keilah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en he located his capital in a Canaanite city. In keeping with the policy of compromise with the Canaanites, David turned seven of Saul's descendants over to the Gibeonites to be hanged.

97:9.14 (1073.4) After the defeat of the Philistines, David gained possession of the “ark of Yahweh,” brought it to Jerusalem, and made the worship of Yahweh official for his kingdom. He next laid heavy tribute on the neighboring tribes — the Edomites, Moabites, Ammonites, and Syrians.

97:9.15 (1073.5) David's corrupt political machine began to get personal possession of land in the north in violation of the Hebrew mores and

있던 대상{隊商}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마침내 획득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포학성이 절정에 이르게 됐다. 모든 법률 소송을 **예루살렘**에서 판결했는데, “장로들”은 더 이상 상벌을 시행할 수 없었다. 반역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오늘날 **압살롬**을 선동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족속**이었다. **밧세바**의 아들--**솔로몬**-- 외에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아들이 여섯이나 있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모든 북쪽 세력의 정치 조종을 없애버렸지만, 아버지의 체제에 있던 모든 폭정과 징세 제도는 계속됐다. **솔로몬**은 사치스런 왕궁과 공들인 건축 사업으로 나라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그 중에는 **레바논**에 있는 집, **바로**의 딸의 궁전, **야훼**의 성전, 왕의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의 성벽 재건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방대한 **히브리인** 해군을 창설해서, **시리아인** 뱃사람들로 이를 운영케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 그의 후궁은 거의 1,000명에 달했다.

이때가 되자, **실로**에 있던 **야훼**의 성전은 신용을 잃었고, 나라의 모든 숭배는 **여부스**에 있는 호화스런 왕궁 예배당에 집중됐다. 북왕국은 **엘로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바로**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로**들은 나중에 **유다**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 남왕국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흥망이--곧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들이-- 계속됐다. 4년 동안의 내란, 그리고 왕조가 세 번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땅을 거래하기 시작한, 도시의 전제 군주의 통치를 받았다. **오므리** 왕조차, **시므리**가 소유한 땅을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자,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에브라임**의 **아합** 왕은 10개의 다른 집단을 모으고 **카르카**에서 저항했으며, 그 전투에서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앗수르인**이 공격을 멈췄지만 동맹군은 많이 희생됐다. 이 큰 싸움은 **구약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사려 하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그의 **페니키아인** 아내가 **아합**의 이름을 위조해서, **나봇**이 “**엘로힘**과 왕”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代價}로 그의 땅을 몰수하라는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즉시 처형됐다. 활력 넘치는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나봇**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합**을 비난했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의 땅_매매 태도에 대항하여, 즉 도시가 농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땅에 관한 옛 사회관행을 옹호하는 자로서 이처럼 그의 가르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곧 토지 중개인들)을 죽이려고, 시골 지주{地主} **예후**가 집시의 족장인 **여호나답**과 합세하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presently gained control of the caravan tariffs formerly collected by the Philistines. And then came a series of atrocities climaxed by the murder of Uriah. All judicial appeals were adjudicated at Jerusalem; no longer could “the elders” mete out justice. No wonder rebellion broke out. Today, Absalom might be called a demagogue; his mother was a Canaanite. There were a half dozen contenders for the throne besides the son of Bathsheba — Solomon.

97:9.16 (1073.6) After David's death Solomon purged the political machine of all northern influences but continued all of the tyranny and taxation of his father's regime. Solomon bankrupted the nation by his lavish court and by his elaborate building program: There was the house of Lebanon, the palace of Pharaoh's daughter, the temple of Yahweh, the king's palace, and the restoration of the walls of many cities. Solomon created a vast Hebrew navy, operated by Syrian sailors and trading with all the world. His harem numbered almost one thousand.

97:9.17 (1073.7) By this time Yahweh's temple at Shiloh was discredited, and all the worship of the nation was centered at Jebus in the gorgeous royal chapel. The northern kingdom returned more to the worship of Elohim. They enjoyed the favor of the Pharaohs, who later enslaved Judah, putting the southern kingdom under tribute.

97:9.18 (1073.8) There were ups and downs — wars between Israel and Judah. After four years of civil war and three dynasties, Israel fell under the rule of city despots who began to trade in land. Even King Omri attempted to buy Shemer's estate. But the end drew on apace when Shalmaneser III decided to control the Mediterranean coast. King Ahab of Ephraim gathered ten other groups and resisted at Karkar; the battle was a draw. The Assyrian was stopped but the allies were decimated. This great fight is not even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97:9.19 (1074.1) New trouble started when King Ahab tried to buy land from Naboth. His Phoenician wife forged Ahab's name to papers directing that Naboth's land be confiscated on the charge that he had blasphemed the names of “Elohim and the king.” He and his sons were promptly executed. The vigorous Elijah appeared on the scene denouncing Ahab for the murder of the Naboths. Thus Elijah, one of the greatest of the prophets, began his teaching as a defender of the old land mores as against the land-selling attitude of the Baalim, against the attempt of the cities to dominate the country. But the reform did not succeed until the country landlord Jehu joined forces with the gypsy chieftain Jehonadab to destroy the prophets (real estate agents) of Baal at Samaria.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하자, 새로운 생활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때가 되자 어느 악당_귀족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렸고, 그의 악탈 행위는 옛 **다윗** 왕조가 무색할 정도였다. 국가와 회당이 서로 결탁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엘리아**, **아모스**, 및 **호세아**로 하여금 비밀 기록을 쓰게 만들었고,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성경**의 실제 발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 왕과 음모를 꾸며서 **앗수르**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할 때까지,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3년간 포위 공격이 있는 후에, 북왕국은 완전히 흩어지게 됐다. **에브라임(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졌다. **유다**는--즉 **유대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사야**가 "집을 가진 자가 더 갖고 땅을 가진 자가 더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소수의 무리에게 땅 소유권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야훼** 성전과 나란히 **바알** 신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됐다. 이런 공포의 통치는 소년 왕 **요아스**가 주도한 일신교 폭동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됐는데, 그는 **야훼**를 위해 35년 동안 개혁 운동을 벌였다.

그 다음 왕인 **아마시아**는, 세금을 납부하는 **에돔족**과 그 이웃들의 폭동으로 고통당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등을 돌려 북쪽의 이웃들을 공격했고, 똑같이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러자 시골에 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왕을 암살하고, 열여섯 살 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아자리아**인데, **이사야**는 그를 **웃시아**라고 불렀다. **웃시아**가 물러난 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고, **유다**는 **앗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100여년 존속될 수 있었다.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야훼**의 성읍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함락될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

유다의 실제 파멸은, 소년 왕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일하던 정치인들의 경쟁적 타락과 치부로 인해 초래됐다. 변화하는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융성하게 됐는데, 그들의 사유지 매매는 **야훼**의 이념에 위배됐다. **앗수르**의 몰락과 **이집트**의 패권이 **유다**를 잠시 구제했고, 시골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요시아**의 통치하에, 그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의 **예루살렘** 도당을 격퇴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앗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온, **네코**의 강력한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시도했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는 완패했고, **유다**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 **바알**을 섬기는 정치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 속박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알**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왕실과 사제계층을 모두 통제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바알** 숭배는, 땅의 비옥함과 상관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다루는 경제 및 사회 체계였

97:9.20 (1074.2) New life appeared as Jehoash and his son Jeroboam delivered Israel from its enemies. But by this time there ruled in Samaria a gangster-nobility whose depredations rivaled those of the Davidic dynasty of olden days. State and church went along hand in hand. The attempt to suppress freedom of speech led Elijah, Amos, and Hosea to begin their secret writing, and this was the real beginning of the Jewish and Christian Bibles.

97:9.21 (1074.3) But the northern kingdom did not vanish from history until the king of Israel conspired with the king of Egypt and refused to pay further tribute to Assyria. Then began the three years' siege followed by the total dispersion of the northern kingdom. Ephraim (Israel) thus vanished. Judah — the Jews, the "remnant of Israel" — had begun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the few, as Isaiah said, "Adding house to house and field to field." Presently there was in Jerusalem a temple of Baal alongside the temple of Yahweh. This reign of terror was ended by a monotheistic revolt led by the boy king Joash, who crusaded for Yahweh for thirty-five years.

97:9.22 (1074.4) The next king, Amaziah, had trouble with the revolting tax-paying Edomites and their neighbors. After a signal victory he turned to attack his northern neighbors and was just as signally defeated. Then the rural folk revolted; they assassinated the king and put his sixteen-year-old son on the throne. This was Azariah, called Uzziah by Isaiah. After Uzziah,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and Judah existed for a hundred years by paying tribute to the kings of Assyria. Isaiah the first told them that Jerusalem, being the city of Yahweh, would never fall. But Jeremiah did not hesitate to proclaim its downfall.

97:9.23 (1074.5) The real undoing of Judah was effected by a corrupt and rich ring of politicians operating under the rule of a boy king, Manasseh. The changing economy favored the return of the worship of Baal, whose private land dealings were against the ideology of Yahweh. The fall of Assyria and the ascendancy of Egypt brought deliverance to Judah for a time, and the country folk took over. Under Josiah they destroyed the Jerusalem ring of corrupt politicians.

97:9.24 (1074.6) But this era came to a tragic end when Josiah presumed to go out to intercept Necho's mighty army as it moved up the coast from Egypt for the aid of Assyria against Babylon. He was wiped out, and Judah went under tribute to Egypt. The Baal political party returned to power in Jerusalem, and thus began the *real* Egyptian bondage. Then ensued a period in which the Baalim politicians controlled both the courts and the priesthood. Baal worship was an economic and social system dealing with property rights as

다.

느브갓네살이 **네코**를 타도한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됐고,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곧 반역을 일으켰다.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유다족속**은 **야훼**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는 등, 사회 개혁을 시작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히브리인**은 마술적 개혁이 자신들을 구출했다고 기뻐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때였으며, 이내 **느브갓네살**이 돌아왔다.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이 갑자기 임했다. 성읍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야훼**와 **바알**의 투쟁은 포로가 됨으로써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은, 포로가 되는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일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바벨론에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회 및 경제 관습을 지녔으므로, **팔레스틴**에 있던 작은 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고, 자신들의 관념이 우세하다면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운명에 관한 그들의 새로운 개념--곧 **유대인**이 **야훼**의 선택받은 종들임에 틀림없다는 관념--이 기원됐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 종교는 정말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됐다.

불멸의 교리 역시 **바벨론**에서 모습을 갖췄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사회 정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내세{來世} 개념이 손상시킨다고 생각해 왔었다. 이때 처음으로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을 밀어냈다. 정치, 사회학, 및 경제학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돼야 하는, 인간의 사고{思考} 및 행동 체계로서, 종교가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대인** 민족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만큼, 신성시되는 역사로 여겨져 온 많은 것이 평범한 세속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유대교**의 토양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자라났지만, **유대인**은 기적의 민족이 아니었다.

10. 히브리인의 종교

이스라엘족속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관대한 대우를 받고 신성한 총애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특별한 봉사를 하라고 선택된 민족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운명을 성취시키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도래할 **메시아**가 **평화의 왕자**로서 그들 및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페르시아인이 **유대인**을 해방시켰을 때,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그들은, 오직 성직자가 지배하

well as having to do with soil fertility.

97:9.25 (1075.1) With the overthrow of Necho by Nebuchadnezzar, Judah fell under the rule of Babylon and was given ten years of grace, but soon rebelled. When Nebuchadnezzar came against them, the Judahites started social reforms, such as releasing slaves, to influence Yahweh. When the Babylonian army temporarily withdrew, the Hebrews rejoiced that their magic of reform had delivered them.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Jeremiah told them of the impending doom, and presently Nebuchadnezzar returned.

97:9.26 (1075.2) And so the end of Judah came suddenly. The city was destroyed, and the people were carried away into Babylon. The Yahweh-Baal struggle ended with the captivity. And the captivity shocked the remnant of Israel into monotheism.

97:9.27 (1075.3) In Babylon the Jews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y could not exist as a small group in Palestine, having their own peculiar social and economic customs, and that, if their ideologies were to prevail, they must convert the gentiles. Thus originated their new concept of destiny — the idea that the Jews must become the chosen servants of Yahweh. The Jewish religion of the Old Testament really evolved in Babylon during the captivity.

97:9.28 (1075.4) The doctrine of immortality also took form at Babylon. The Jews had thought that the idea of the future life detracted from the emphasis of their gospel of social justice. Now for the first time theology displaced sociology and economics. Religion was taking shape as a system of human thought and conduct more and more to be separated from politics, sociology, and economics.

97:9.29 (1075.5) And so does the truth about the Jewish people disclose that much which has been regarded as sacred history turns out to be little more than the chronicle of ordinary profane history. Judaism was the soil out of which Christianity grew, but the Jews were not a miraculous people.

10. THE HEBREW RELIGION

97:10.1 (1075.6) Their leaders had taught the Israelites that they were a chosen people, not for special indulgence and monopoly of divine favor, but for the special service of carrying the truth of the one God over all to every nation. And they had promised the Jews that, if they would fulfill this destiny, they would become the spiritual leaders of all peoples, and that the coming Messiah would reign over them and all the world as the Prince of Peace.

97:10.2 (1075.7) When the Jews had been freed by the Persians, they returned to Palestine only to fall

는 율법, 제물, 및 제례식의 규범에 묶이는 신세로 전락했을 뿐이었다. 제물을 바치고 속죄하는 제례식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가 고별 연설에 제시했던 경이로운 **하나님** 이야기를 **히브리인** 씨족들이 거부한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은, 점점 확장되는 제사장체제의 규정, 규칙, 및 제례식을 따르기 위하여, 제2 **이사야**의 훌륭한 개념을 거부했다.

민족의 자기중심주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리고 제사장체제의 점점 심해지는 속박과 횡포로 인해, (**다니엘**, **에스겔**, **학개**, **말라기**를 제외한) 영적 지도자들의 외침은 끊임없이 묵살됐으며; 그날부터 **세레 요한**의 시대까지, 온 **이스라엘**은 점점 심화되는 영적 퇴보를 체험했다. 그러나 **유대인**은,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기원후 20세기까지도 이 **신격** 개념을 계속 따라왔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일신교의 횃불을 전해줬던, 성실한 선생 계통이 끊어지지 않고 **모세**에서 **세레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며, 한편 그들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꾸짖고, 상업화된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최고 **야훼**, 즉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경배를 고수하도록 그 민족에게 계속 훈계했다.

유대인은 결국, 한 나라로서의 정치적 주체성을 잃었지만, 유일하신 우주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갖는 **히브리인**의 종교는 흩어진 유랑민 가슴속에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살아남은 것은, 그것이 추종자들의 최고 가치를 보존하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종교는 민족의 이상{理想}을 보존했지만, 진리의 영역에 대한 철학적인 창조적 발굴을 더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에는 실패했다. **유대인**의 종교는 -철학이 부족하고 심미적 특성이 거의 없는- 많은 결점을 가졌던 반면, 도덕적 가치를 보존시켰으며; 그래서 존속했다. 다른 **신격** 개념들과 비교할 때, 지존하신 **야훼**는, 명쾌하고, 생생하며, 개인적이고, 도덕적이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의, 지혜, 진리, 및 정의를 사랑했지만, 이런 신성한 특성을 지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모든 민족을 이끄는 데는 가장 적게 기여했다. **히브리인**의 신학은 확장하기를 거절했지만, 다른 두 세계 종교, 즉 **그리스도교**와 **마호메트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대인의 종교는 그 제도 때문에 존속되기도 했다. 고립된 개인의 사사로운 풍습으로서 종교가 살아남기는 힘들다. 이것은 늘 종교 지도자들의 실책이었는데: 그들은 제도화된 종교의 악한 면을 보면서 집단 활동의 기법을 파괴시키려고 모색한다. 그들은 모든 제례식을 없애는 대신, 그 제례식을 개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

into bondage to their own priest-ridden code of laws, sacrifices, and rituals. And as the Hebrew clans rejected the wonderful story of God presented in the farewell oration of Moses for the rituals of sacrifice and penance, so did these remnants of the Hebrew nation reject the magnificent concept of the second Isaiah for the rules, regulations, and rituals of their growing priesthood.

97:10.3 (1075.8) National egotism, false faith in a misconceived promised Messiah, and the increasing bondage and tyranny of the priesthood forever silenced the voices of the spiritual leaders (excepting Daniel, Ezekiel, Haggai, and Malachi); and from that day to the time of John the Baptist all Israel experienced an increasing spiritual retrogression. But the Jews never lost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even to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they have continued to follow this Deity conception.

97:10.4 (1076.1) From Moses to John the Baptist there extended an unbroken line of faithful teachers who passed the monotheistic torch of light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while they unceasingly rebuked unscrupulous rulers, denounced commercializing priests, and ever exhorted the people to adhere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the Lord God of Israel.

97:10.5 (1076.2) As a nation the Jews eventually lost their political identity, but the Hebrew religion of sincere belief in the one and universal God continues to live in the hearts of the scattered exiles. And this religion survives because it has effectively functioned to conserve the highest values of its followers. The Jewish religion did preserve the ideals of a people, but it failed to foster progress and encourage philosophic creative discovery in the realms of truth. The Jewish religion had many faults — it was deficient in philosophy and almost devoid of aesthetic qualities — but it did conserve moral values; therefore it persisted. The supreme Yahweh, as compared with other concepts of Deity, was clear-cut, vivid, personal, and moral.

97:10.6 (1076.3) The Jews loved justice, wisdom, truth, and righteousness as have few peoples, but they contributed least of all peoples to the intellectual comprehension and to the spiritual understanding of these divine qualities. Though Hebrew theology refused to expand, it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two other world religions, Christianity and Mohammedanism.

97:10.7 (1076.4) The Jewish religion persisted also because of its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for religion to survive as the private practice of isolated individuals. This has ever been the error of the religious leaders: Seeing the evils of institutionalized religion, they seek to destroy the technique of group functioning. In place of

스겔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현명했으며; 비록 그가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고집하는 데 그들과 합세했지만, 그는 또한 우수하고 정화된 제례식을 충실히 지키는 관례를 확립하는 일도 시작했다.

이처럼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일찍이 **유란시아**에서 발생했던 종교 진화에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했는데: 미개한 정령{精靈} **야훼**에 대한 야만적 개념, 즉 폭음을 내면서 폭발하는 **시내산** 화산의 질투심 많고 잔인한 영적 신이, 나중에는 만유의 창조자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인, 최고 **야훼**라는 고양되고 숭고한 개념으로, 점진적이지만 계속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이런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친히 주신 가르침과 생애의 본보기로 인해 더욱 확장되고 절묘하게 확대될 때까지,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인간의 심상{心像}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destroying all ritual, they would do better to reform it. In this respect Ezekiel was wiser than his contemporaries; though he joined with them in insisting on personal moral responsibility, he also set about to establish the faithful observance of a superior and purified ritual.

97:10.8 (1076.5) And thus the successive teachers of Israel accomplished the greatest feat in the evolution of religion ever to be effected on Urantia: the gradual but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the barbaric concept of the savage demon Yahweh, the jealous and cruel spirit god of the fulminating Sinai volcano, to the later exalted and supernal concept of the supreme Yahweh, creator of all things and the loving and merciful Father of all mankind. And this Hebraic concept of God was the highest human visualiz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up to that time when it was further enlarged and so exquisitely amplified by the personal teachings and life example of his Son, Michael of Nebadon.

97:10.9 (1076.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8편. 서양의 멜기세덱 교훈

⇨ 097

유란시아 책

09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8편
서양의 멜기세덱 교훈

섹션

소개

1. 그리스인 가운데서 살렘 종교
2. 그리스의 철학적 사고
3. 로마의 멜기세덱 교훈
4. 신비 종파
5. 미트라 종파
6.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7. 그리스도교

소개

멜기세덱의 교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지만, 주로 **이집트**를 통해서 전달됐으며, 철저히 **헬라화**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교**화된 후에 **서양** 철학에 포함됐다. **서방** 세계의 이상{理想}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따랐고, 후일에 그 종교 철학은, 진화하는 **서양** 철학 및 종교와 접촉하여 변경되고 절충된 대로 **예수**의 종교 철학이 됐으며, **서양** 철학 및 종교는 모두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했고, 간헐적으로 일어난 많은 종파와 제례 집단에 점차 흡수됐다. **살렘** 교훈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직한 사람들 중에서, **견유학파**{犬儒學派}는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외치는 이 전도자들은, 기원후 1세기에 **로마**화된 **유럽**에서 여전히 활약했고, 나중에는 새롭게 형성되는 **그리스도교**에 통합됐다.

서양의 수많은 군사 투쟁에서 싸웠던 **유대인** 용병{傭兵}들이 대부분의 **살렘** 교리를 **유럽**에 퍼뜨렸다. 고대{古代}에 **유대인**은 신학적 독특성으

PAPER 98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OCCID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Religion among the Greeks
2. Greek Philosophic Thought
3.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Rome
4. The Mystery Cults
5. The Cult of Mithras
6. Mithraism and Christianity
7. The Christian Religion

INTRODUCTION

98:0.1 (1077.1) THE Melchizedek teachings entered Europe along many routes, but chiefly they came by way of Egypt and were embodied in Occidental philosophy after being thoroughly Hellenized and later Christianized. The ideals of the Western world were basically Socratic, and its later religious philosophy became that of Jesus as it was modified and compromised through contact with evolving Occidental philosophy and religion, all of which culminated in the Christian church.

98:0.2 (1077.2) For a long time in Europe the Salem missionaries carried on their activities, becoming gradually absorbed into many of the cults and ritual groups which periodically arose. Among those who maintained the Salem teachings in the purest form must be mentioned the Cynics. These preachers of faith and trust in God were still functioning in Roman Europe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being later incorporated into the newly forming Christian religion.

98:0.3 (1077.3) Much of the Salem doctrine was spread in Europe by the Jewish mercenary soldiers who fought in so many of the Occidental

로 유명했던 만큼, 용맹스런 군인으로도 유명했다.

그리스 철학, **유대인** 신학, 및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 교리는 근본적으로, 더 예전에 있었던 **멜기세덱** 교훈의 간접영향이었다.

1. 그리스인 가운데서 살렘 종교

살렘 선교사들은, 임직식{任職式} 때 했던 맹세, 즉 **마키벤타**가 부과한 서약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인** 가운데서 대단한 종교 체제를 세웠을 것인데, 이 서약은 순전히 경배를 위한 회중{會衆}은 조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선생 각자에게 결코 사제로서 활동하지 말고, 종교적 봉사에 대한 대가{代價}를 받지 말고, 오직 양식, 의복, 및 거처할 장소만 받는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헬라화**하기 전의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멜기세덱** 선생들은 **아담선**과 **안드족속** 시대의 전통을 여전히 간직한 민족을 발견했지만, 이 교훈은 **그리스** 해안에 점점 많은 숫자로 불어났던 열등한 유랑민 무리 노예의 관념과 믿음으로 크게 오염됐다. 이런 오염은, 피 흘리는 제례와 함께 조잡한 정령 숭배로 퇴보하게 했는데, 하류 계층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집행을 예식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살렘 선생의 초기 영향은, 남부 **유럽** 및 **동방**으로부터 소위 **아리아인**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없어졌다. 이 **헬라인** 침입자들은, **아리아인** 동족이 **인도**로 가져갔던 것과 유사한, 사람 모습을 닮은 **하나님** 개념을 가져왔다. 이 개념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남신과 여신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신{神} 계보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 종교는, 유입되는 **헬라** 야만인이 갖고 있는 종파에 부분적으로 기초했지만, 또한 **그리스**의 옛 주민의 신화도 공유했다.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은 어머니 숭배 종파가 **지중해** 연안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 민족들에게 자기네 인신{人神} **디아우스_제우스**를 믿도록 강요했는데, 이 인신은 단일 신교를 숭배하는 **셈족속** 가운데 있던 **아훼**처럼, **그리스**의 하급 신들의 만신전 전체에서 이미 우두머리가 됐다. **운명의 신**이 전면통제한다는 생각을 버렸더라면, **그리스인**은 **제우스** 개념에서 결국 참된 일신교를 성취했을 것이다. 최종 가치를 지닌 **하나님**은, 자신이 운명의 중재자 및 운명의 창조자여야 한다.

종교의 진화에서 이 요인들의 결과로, **올림푸스 산**의 낙천적 신들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곧 발달했는데, 이 신들은 신보다 인간에 가까웠고, 충

military struggles. In ancient times the Jews were famed as much for military valor as for theologic peculiarities.

98:0.4 (1077.4) The basic doctrines of Greek philosophy, Jewish theology, and Christian ethics were fundamentally repercussions of the earlier Melchizedek teachings.

1. THE SALEM RELIGION AMONG THE GREEKS

98:1.1 (1077.5) The Salem missionaries might have built up a great religious structure among the Greeks had it not been for their strict interpretation of their oath of ordination, a pledge imposed by Machiventa which forbade the organization of exclusive congregations for worship, and which exacted the promise of each teacher never to function as a priest, never to receive fees for religious service, only food, clothing, and shelter. When the Melchizedek teachers penetrated to pre-Hellenic Greece, they found a people who still fostered the traditions of Adamson and the days of the Andites, but these teachings had become greatly adulterated with the notions and beliefs of the hordes of inferior slaves that had been brought to the Greek shores in increasing numbers. This adulteration produced a reversion to a crude animism with bloody rites, the lower classes even making ceremonial out of the execution of condemned criminals.

98:1.2 (1077.6) The early influence of the Salem teachers was nearly destroyed by the so-called Aryan invasion from southern Europe and the East. These Hellenic invaders brought along with them anthropomorphic God concepts similar to those which their Aryan fellows had carried to India. This importation inaugurated the evolution of the Greek family of gods and goddesses. This new religion was partly based on the cults of the incoming Hellenic barbarians, but it also shared in the myths of the older inhabitants of Greece.

98:1.3 (1078.1) The Hellenic Greeks found the Mediterranean world largely dominated by the mother cult, and they imposed upon these peoples their man-god, Dyaus-Zeus, who had already become, like Yahweh among the henotheistic Semites, head of the whole Greek pantheon of subordinate gods. And the Greeks would have eventually achieved a true monotheism in the concept of Zeus except for their retention of the overcontrol of Fate. A God of final value must, himself, be the arbiter of fate and the creator of destiny.

98:1.4 (1078.2) As a consequence of these factors in religious evolution, there presently developed the popular belief in the happy-go-lucky gods of Mount

명한 **그리스인**은 이 신들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이런 신들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고,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의 반신반인(半神半人) 가족에 대해 애국심과 민족적 느낌을 가졌지만, 그들을 공경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았다.

헬라인은 사제제도에 반대하는 초기 **살렘** 선생의 교리에 너무 젖어 있었으므로, **그리스**에서는 어떤 유력한 사제계층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형상을 만들어 신들에게 바치는 것도,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일이 됐다.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사람의 전형적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윤리적이거나 심미적이었다. **그리스**의 종교는, 한 신적 집단이 지배하는 우주를 묘사했기 때문에 유익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도덕, 윤리, 및 철학은, 곧 신 개념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진보했고,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이의 이 불균형은, **인도**에서 입증됐다시피, **그리스**에 위험했다.

2. 그리스의 철학적 사고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피상적인 종교는, 특히 그 형식을 조성하고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채워줄 사제계층이 없을 때, 지속될 수 없다. **올림포스 산**의 종교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영적 갈증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소멸될 운명이었다. 그것은 생긴 후 1,000년 안에 거의 사라졌고, **그리스인**은 민족 종교 없이 지냈는데,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상류의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양**과 **레반트**가 영적 의식(意識)의 회복을 체험하고, 일신교를 깨닫는 새로운 각성을 체험하던, 기원전 6세기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방**은 이런 새로운 발전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북부 **아프리카**도 종교 부흥에 널리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굉장한 지적 발전을 이룩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로 종교를 찾지 않았지만, 바로 그 참된 종교가, 혼의 갈급함, 영적 불안감, 그리고 도덕적 절망감에 대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깊이 사색함으로써 --철학과 형이상학으로-- 혼의 위안을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자아_보존--곧 구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자아_실현과 자아_이해로 돌아섰다.

그리스인은, 엄밀하게 사고(思考)함으로써 생존한다는 믿음의 대용품으로 쓰일 보증품을 의식(意識)하려고 애썼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오직 **헬라** 민족들 가운데 상류 계층에서 더 지성적인 사

Olympus, gods more human than divine, and gods which the intelligent Greeks never did regard very seriously. They neither greatly loved nor greatly feared these divinities of their own creation. They had a patriotic and racial feeling for Zeus and his family of half men and half gods, but they hardly revered or worshiped them.

98:1.5 (1078.3) The Hellenes became so impregnated with the antipriestcraft doctrines of the earlier Salem teachers that no priesthood of any importance ever arose in Greece. Even the making of images to the gods became more of a work in art than a matter of worship.

98:1.6 (1078.4) The Olympian gods illustrate man's typical anthropomorphism. But the Greek mythology was more aesthetic than ethic. The Greek religion was helpful in that it portrayed a universe governed by a deity group. But Greek morals, ethics, and philosophy presently advanced far beyond the god concept, and this imbalance between intellectual and spiritual growth was as hazardous to Greece as it had proved to be in India.

2. GREEK PHILOSOPHIC THOUGHT

98:2.1 (1078.5) A lightly regarded and superficial religion cannot endure, especially when it has no priesthood to foster its forms and to fill the hearts of the devotees with fear and awe. The Olympian religion did not promise salvation, nor did it quench the spiritual thirst of its believers; therefore was it doomed to perish. Within a millennium of its inception it had nearly vanished, and the Greeks were without a national religion, the gods of Olympus having lost their hold upon the better minds.

98:2.2 (1078.6) This was the situation when, during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he Orient and the Levant experienced a revival of spiritual consciousness and a new awakening to the recognition of monotheism. But the West did not share in this new development; neither Europe nor northern Africa extensively participated in this religious renaissance. The Greeks, however, did engage in a magnificent intellectual advancement. They had begun to master fear and no longer sought religion as an antidote therefor, but they did not perceive that true religion is the cure for soul hunger, spiritual disquiet, and moral despair. They sought for the solace of the soul in deep thinking — philosophy and metaphysics. They turned from the contemplation of self-preservation — salvation — to self-realization and self-understanding.

98:2.3 (1078.7) By rigorous thought the Greeks attempted to attain that consciousness of security which would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belief in survival, but they utterly failed. Only the more

람들만, 이 새로운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옛 세대 노예의 후손인 서민은 이런 새로운 종교 대용품을 받아들일만한 수용력이 없었다.

거의 모든 철학자가, “우주의 **지성**”, “**하나님** 관념”, 및 “**위대한 근원**”을 가르친 **살렘** 교리에 대한 믿음의 배경에 미약하게나마 몰들어 있었음에도, 모든 형태의 숭배를 경멸했다. 신성한 자들과 유한(有限)을 초월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솔직하게 일신교를 믿었지만; **올림포스 산**의 남신 및 여신들 전체 무리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5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 시인(詩人)들, 특히 **핀다로스**는, **그리스**의 종교를 개혁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그리스** 종교의 이상(理想)을 높였지만, 종교가라기보다 예술가였다. 그들은 최상의 가치기준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기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크세노파네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필사적 사람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기에는, 그의 신격 개념이 너무 범신론적이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최초 원인**, 즉 **시초 정신**을 인식한 것 외에는 기계론자에 불과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 미덕이고; 건강한 혼이 선(善)이며; 불의를 범하기보다 당하는 편이 낫고, 악을 악으로 갚음은 잘못이며, 신들은 현명하며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 덕행은: 지혜, 용기, 절제, 및 공의였다.

헬라 민족과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종교 철학의 진화는, 문화 진보의 형태를 결정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교회의 기능을 대조해서 보여준다. **팔레스틴**에서 인간의 사고(思考)는, 지나치게 사제의 통제를 받고 **성서**에 지배됐으므로, 철학과 미학(美學)은 종교와 도덕에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에서는, 사제와 “신성한 경전”이 거의 완전하게 없었으므로 인간 정신이 자유롭게 속박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사고(思考)의 깊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개인 체험으로서, 종교는 시공우주의 본성과 실체를 추구하는 지적 탐구와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스에서 믿음은 생각에 종속됐으며; **팔레스틴**에서 생각은 믿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장점이 많은 것은, **히브리인**의 도덕성과 **그리스**의 사상으로부터 매우 많이 빌려왔기 때문이다.

팔레스틴에서는 종교 교의가 너무 정형화(定型化)돼서,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으며;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너무 추상화되어, **하나님** 개념이 분해됨으로써 범신론적 사색(思索)으로 변하는 안개 같은 상태가 됐지만, **브라만** 사상가들의 비인격적 **무한자**와는 전혀 달랐다.

intelligent among the higher classes of the Hellenic peoples could grasp this new teaching; the rank and file of the progeny of the slaves of former generations had no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this new substitute for religion.

98:2.4 (1079.1) The philosophers disdained all forms of worship, notwithstanding that they practically all held loosely to the background of a belief in the Salem doctrine of “the Intelligence of the universe,” “the idea of God,” and “the Great Source.” In so far as the Greek philosophers gave recognition to the divine and the superfinite, they were frankly monotheistic; they gave scant recognition to the whole galaxy of Olympian gods and goddesses.

98:2.5 (1079.2) The Greek poets of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notably Pindar, attempted the reformation of Greek religion. They elevated its ideals, but they were more artists than religionists. They failed to develop a technique for fostering and conserving supreme values.

98:2.6 (1079.3) Xenophanes taught one God, but his deity concept was too pantheistic to be a personal Father to mortal man. Anaxagoras was a mechanist except that he did recognize a First Cause, an Initial Mind. Socrates and his successors, Plato and Aristotle, taught that virtue is knowledge; goodness, health of the soul; that it is better to suffer injustice than to be guilty of it, that it is wrong to return evil for evil, and that the gods are wise and good. Their cardinal virtues were: wisdom, courage, temperance, and justice.

98:2.7 (1079.4) The evolution of religious philosophy among the Hellenic and Hebrew peoples affords a contrastive illustration of the function of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in the shaping of cultural progress. In Palestine, human thought was so priest-controlled and scripture-directed that philosophy and aesthetics were entirely submerged in religion and morality. In Greece, the almost complete absence of priests and “sacred scriptures” left the human mind free and unfettered, resulting in a startling development in depth of thought. But religion as a personal experience failed to keep pace with the intellectual probings into the nature and reality of the cosmos.

98:2.8 (1079.5) In Greece, believing was subordinated to thinking; in Palestine, thinking was held subject to believing. Much of the strength of Christianity is due to its having borrowed heavily from both Hebrew morality and Greek thought.

98:2.9 (1079.6) In Palestine, religious dogma became so crystallized as to jeopardize further growth; in Greece, human thought became so abstract that the concept of God resolved itself into a misty vapor of pantheistic speculation not at all unlike the impersonal Infinity of the Brahman philosophers.

그러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자아 실현과 추상적 **신격**을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을 파악할 수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인격있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갈망했다. 그들은 철학자들을 추방시켰고, **살렘** 종파의 잔재를 박해했으며, 이 두 교리가 많이 혼합됐고, 몹시 문란하게 되어, 신비 종파들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준비가 됐으며, 이 신비 종파들은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다. **엘레우시스**의 신비의식 {神秘儀式}이, **올림포스 산**의 만신전, 즉 다산{多産}을 숭배하는 **그리스** 개정판 속에서 자라났으며; **디오니수스**의 자연 숭배가 번성했고; 그 종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오르페우스** 형제단{兄弟團}이었는데, 그들의 도덕적 훈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새 방법, 즉 감정적이고 열렬한 이 예식절차에 전체 **그리스인**이 팔려들었다. 어떤 나라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런 고도의 예술 철학을 달성한 적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신격** 없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도 전혀 없이, 아무도 그런 진보된 윤리 체계를 일찍이 만든 적이 없었으며; 바로 이 **그리스** 민족들이 신비 종파의 맹렬한 소용돌이에 뛰어들었을 때 그랬듯이, 어느 나라도 그토록 빨리, 깊이, 그리고 세차게, 그런 깊은 지적 침체, 도덕적 타락, 및 영적 빈곤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

종교는 철학의 도움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지만, 종교와 어느 정도 일치함 없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런 철학은 거의 없었다.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생각과 행동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인간의 이상적 정황은, 철학, 종교, 및 과학이, 지혜, 신앙, 그리고 체험의 합쳐진 행위로 인해, 하나의 의미 있는 통일체 속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3. 로마의 멜기세덱 교훈

가족 신들을 숭배하는 예전의 종교 형태로부터, 전쟁의 신{神} **마르스**에 대한 부족{部族} 숭배로 발전했기 때문에, **라틴** 지역의 후대 종교가, **그리스** 및 **브라만**의 지적 체계 또는 몇몇 다른 민족의 더 영적인 종교보다 오히려 정치 관례에 더 가까운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기원전 6세기에 **멜기세덱**의 복음이 일신교의 부흥을 크게 꺾는 가운데, **이탈리아**에 스며든 **살렘** 선교사가 너무 적었으므로, 스며든 그들은, 급속히 퍼지는 **에트루리아** 사제계층, 그리고 새 집단의 신들 및 신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로마**의 국가 종교로 조직됐다. **라틴** 부족들의 이 종교는, **그리스인**의 종교처럼 진부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98:2.10 (1079.7) But the average men of these times could not grasp, nor were they much interested in, the Greek philosophy of self-realization and an abstract Deity; they rather craved promises of salvation, coupled with a personal God who could hear their prayers. They exiled the philosophers, persecuted the remnants of the Salem cult, both doctrines having become much blended, and made ready for that terrible orgiastic plunge into the follies of the mystery cults which were then overspreading the Mediterranean lands. The Eleusinian mysteries grew up within the Olympian pantheon, a Greek version of the worship of fertility; Dionysus nature worship flourished; the best of the cults was the Orphic brotherhood, whose moral preachments and promises of salvation made a great appeal to many.

98:2.11 (1080.1) All Greece became involved in these new methods of attaining salvation, these emotional and fiery ceremonials. No nation ever attained such heights of artistic philosophy in so short a time; none ever created such an advanced system of ethics practically without Deity and entirely devoid of the promise of human salvation; no nation ever plunged so quickly, deeply, and violently into such depths of intellectual stagnation, moral depravity, and spiritual poverty as these same Greek peoples when they flung themselves into the mad whirl of the mystery cults.

98:2.12 (1080.2) Religions have long endured without philosophical support, but few philosophies, as such, have long persisted without some identification with religion. Philosophy is to religion as conception is to action. But the ideal human estate is that in which philosophy, religion, and science are welded into a meaningful unity by the conjoined action of wisdom, faith, and experience.

3.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ROME

98:3.1 (1080.3) Having grown out of the earlier religious forms of worship of the family gods into the tribal reverence for Mars, the god of war, it was natural that the later religion of the Latins was more of a political observance than were the intellectual systems of the Greeks and Brahmins or the more spiritual religions of several other peoples.

98:3.2 (1080.4) In the great monotheistic renaissance of Melchizedek's gospel during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oo few of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Italy, and those who did were unable to overcome the influence of the rapidly spreading Etruscan priesthood with its new galaxy of gods and temples, all of which became organized into the Roman state religion. This religion of the Latin tribes was not trivial and venal like that of the

것처럼 엄격하거나 압제적이지도 않았으며; 대체로 단순한 형식, 맹세, 및 금기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로부터 문화를 널리 도입한 데 크게 영향 받았다. 결국 **올림포스 산**의 신들 대부분이 **라틴**의 만신전으로 옮겨지고 합병됐다. **그리스인**은 가족 화로{火爐}의 불을 오랫동안 숭배해 왔는데--**헤스티아**가 그 화로의 처녀 여신{女神}이었으며;**베스타**는 가정을 돌보는 **로마** 여신이었다. **제우스**는 **주피터**가 됐고;**아프로다이트**는 **비너스**가 됐으며;**올림포스 산**의 많은 신격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로마의 젊은이들이 치르는 종교 입회식은, 국가 봉사에 엄숙히 헌신하는 행사였다. 선서와 시민권 부여는 실제로 종교 예식이었다. **라틴** 민족들은, 신전, 제단, 및 성소{聖所}를 유지했고, 위기가 닥칠 때에는 계시를 받고자 했다. 그들은 영웅의 뼈,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성자{聖子}들의 뼈를 보관했다.

그리스인의 상당히 지적이고 예술적인 숭배가, 신비 종파들의 열렬하고 매우 감정적인 숭배 앞에 무릎 꿇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는 형태의 종교를 가장한 애국심은 붕괴될 운명이었다. 이 파괴적인 종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신비교 분파였는데, 오늘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본부가 있었다.

신 흥 **로마** 국가는, **이집트**, **그리스**, 및 **레반트**를 정치적으로는 정복 했지만, 그들의 종파, 제례식, 신비의식, 및 신 개념들에게 역으로 정복당했다. 수입된 이 종파들은 **로마** 국가 전역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계속 번창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와 시민의 도리 때문에, 신비의식들을 말살하고 예전의 정치적 종교를 부흥시키려고 영웅적으로 애썼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유일하신 **하나님**, 즉 모든 초자연 존재를 지배하는 최종 **신격**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렘** 선생들이 초기에 시도했던 것을, 국가 종교를 섬기는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야기했으며;이 개념이 그 황제를 강하게 사로잡게 되어, 많은 신전을 세웠고 아름다운 형상들로 신전들을 장식했으며, 국가적 사제체제를 재구성했으며, 국교{國敎}를 다시 세우고, 전체를 주관하는 대사제로 자신을 지정했으며, 황제로서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이 새 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의 고향인 **팔레스틴**을 제외한 제국 전역에서 번창했고 신봉됐다. 그리고 이 인간 신들의 시대는, 공식 **로마** 종파가 40명 이상의, 스스로_높아진 인간 신격을 명부에 올릴 때까지 계속됐는데, 이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초인적인 다른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Greeks, neither was it austere and tyrannical like that of the Hebrews; it consisted for the most part in the observance of mere forms, vows, and taboos.

98:3.3 (1080.5) Roman relig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extensive cultural importations from Greece. Eventually most of the Olympian gods were transplanted and incorporated into the Latin pantheon. The Greeks long worshiped the fire of the family hearth — Hestia was the virgin goddess of the hearth; Vesta was the Roman goddess of the home. Zeus became Jupiter; Aphrodite, Venus; and so on down through the many Olympian deities.

98:3.4 (1080.6) The religious initiation of Roman youths was the occasion of their solemn consecration to the service of the state. Oaths and admissions to citizenship were in reality religious ceremonies. The Latin peoples maintained temples, altars, and shrines and, in a crisis, would consult the oracles. They preserved the bones of heroes and later on those of the Christian saints.

98:3.5 (1080.7) This formal and unemotional form of pseudoreligious patriotism was doomed to collapse, even as the highly intellectual and artistic worship of the Greeks had gone down before the fervid and deeply emotional worship of the mystery cults. The greatest of these devastating cults was the mystery religion of the Mother of God sect, which had its headquarters, in those days, on the exact site of the present church of St. Peter's in Rome.

98:3.6 (1080.8) The emerging Roman state conquered politically but was in turn conquered by the cults, rituals, mysteries, and god concepts of Egypt, Greece, and the Levant. These imported cults continued to flourish throughout the Roman state up to the time of Augustus, who, purely for political and civic reasons, made a heroic and somewhat successful effort to destroy the mysteries and revive the older political religion.

98:3.7 (1081.1) One of the priests of the state religion told Augustus of the earlier attempts of the Salem teach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one God, a final Deity presiding over all supernatural beings; and this idea took such a firm hold on the emperor that he built many temples, stocked them well with beautiful images, reorganized the state priesthood, re-established the state religion, appointed himself acting high priest of all, and as emperor did not hesitate to proclaim himself the supreme god.

98:3.8 (1081.2) This new religion of Augustus worship flourished and was observed throughout the empire during his lifetime except in Palestine, the home of the Jews. And this era of the human gods continued until the official Roman cult had a roster of more than twoscore self-elevated human deities, all claiming miraculous births and other

진지한 전도자 집단인 **견유학파**가, 점점 감소하는 **살렘** 신자 무리의 마지막 저항이었고, 그들은 **로마인**에게, 거칠고 몰상식한 종교 제례식을 버리고, **멜기세덱**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경배 형태로 돌아가라고 훈계했는데, 그 복음은 이전에 **그리스인**의 철학과 접촉함으로써 변경되고 오염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견유학파**의 주장을 거부했으며; 신비의식 제례에 몰입하기를 선호했는데, 신비의식은 개인이 구원받는다라는 희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락, 흥분, 및 여흥에 대한 욕구 또한 채워줬다.

4. 신비 종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원시 가족 종교와 국가 종교를 잃어버렸고, **그리스** 철학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거나 납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와 **레반트**에서 온, 호화롭고 감정적인 신비 종파들로 눈을 돌렸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곧 오늘 종교적 위로를 받고 죽은 후에 불멸한다는 희망의 보장--을 갈망했다.

세 개의 신비 종파가 가장 널리 퍼졌다:

1. **퀴벨레**와 그녀의 아들 **아티스**를 믿는 **프리지아** 종파.
2. **오시리스**와 그의 어머니 **이시스**를 믿는 **이집트** 종파.
3. 죄 많은 인류의 구원자와 구속자(救贖者)로서 **미트라**를 숭배하는 **이란** 종파.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의식은, 신성한 아들이(**아티스**와 **오시리스**가 각각) 죽음을 체험하고 신성한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쳤으며, 더욱이 그 신비 상태로 올바르게 가입된 사람, 그리고 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념일을 경건하게 축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함으로 그의 신성한 본성과 불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프리지아의 예식은 화려했지만 타락했으며; 그들의 피 흘리는 축제는, **레반트**의 이 신비의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원시 상태였는지 보여준다. **불길한 금요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이었는데, **아티스**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피의 날”이었다. 축제는 **아티스**의 희생과 죽음을 3일 동안 경축한 후에, 그의 부활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숭배하는 제례식은 **프리지아** 종파의 제례식보다 더 세련되고 인상적이었다. **이집트**의 이 제례식은, 옛 **나일** 신, 즉 죽었

superhuman attributes.

98:3.9 (1081.3) The last stand of the dwindling band of Salem believers was made by an earnest group of preachers, the Cynics, who exhorted the Romans to abandon their wild and senseless religious rituals and return to a form of worship embodying Melchizedek's gospel as it had been modified and contaminated through contact with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But the people at large rejected the Cynics; they preferred to plunge into the rituals of the mysteries, which not only offered hopes of personal salvation but also gratified the desire for diversion, excitement, and entertainment.

4. THE MYSTERY CULTS

98:4.1 (1081.4)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Greco-Roman world, having lost their primitive family and state religions and being unable or unwilling to grasp the meaning of Greek philosophy,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spectacular and emotional mystery cults from Egypt and the Levant. The common people craved promises of salvation — religious consolation for today and assurances of hope for immortality after death.

98:4.2 (1081.5) The three mystery cults which became most popular were:

98:4.3 (1081.6) 1. The Phrygian cult of Cybele and her son Attis.

98:4.4 (1081.7) 2. The Egyptian cult of Osiris and his mother Isis.

98:4.5 (1081.8) 3. The Iranian cult of the worship of Mithras as the savior and redeemer of sinful mankind.

98:4.6 (1081.9) The Phrygian and Egyptian mysteries taught that the divine son (respectively Attis and Osiris) had experienced death and had been resurrected by divine power, and further that all who were properly initiated into the mystery, and who reverently celebrated the anniversary of the god's death and resurrection, would thereby become partakers of his divine nature and his immortality.

98:4.7 (1081.10) The Phrygian ceremonies were imposing but degrading; their bloody festivals indicate how degraded and primitive these Levantine mysteries became. The most holy day was Black Friday, the “day of blood,” commemorating the self-inflicted death of Attis. After three days of the celebration of the sacrifice and death of Attis the festival was turned to joy in honor of his resurrection.

98:4.8 (1082.1) The rituals of the worship of Isis and Osiris were more refined and impressive than were those of the Phrygian cult. This Egyptian ritual was built around the legend of the Nile god of

다가 살아난 신에 대한 전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개념은 모든 생명 있는 식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동면{冬眠}한 상태에 있다가 봄철에 다시 회복되어 자라나는 것을 관찰한 데서 유래했다. 이런 신비 종파들의 관례의 광포함과, 그들의 예식절차에 속하는 방탕함이, 신성을 깨닫는 “열광”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아주 구역질나는 것이었다.

5. 미드라 종파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의식은, 모든 신비 종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미드라** 숭배 앞에 결국 굴복했다. **미드라** 종파는, 광범한 인간 본성에 호소했고, 이전에 있었던 두 종파를 차츰 갈아치웠다. **미드라교**는, **레반트**에서 모집한 **로마** 군단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는데, **레반트**에서 이 종교가 유행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 제례식은 그 전에 있던 신비 종파들보다 훨씬 개량됐다.

미드라 종파는, **이란**에서 생겨났고, **조로아스터** 추종자의 호전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 고향에서 오래 존속했다. 그러나 **미드라교**가 **로마**에 전파될 때가 되자, 이 종파는 **조로아스터**의 교훈 중에서 다수를 흡수함으로써 크게 개선됐다. **조로아스터**의 종교가, 후대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미드라** 종파를 통해서였다.

미드라 종파는 큰 바위에서 생겨난 호전적 신을 묘사했는데, 그 신은 용맹스런 위업을 이룩하고, 화살로 맞춘 어떤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다. 홍수가 발생했고, 한 사람이 특별하게 건조된 배를 타고 피했으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미드라**가 태양 신과 함께 축하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이 태양 신, 즉 **솔 인빅투스**는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 신격 개념이 퇴화된 것이었다. **미드라**는, 태양 신이 어둠의 신과 벌인 싸움에서 살아남은, 태양 신의 투사{鬪士}로 여겨졌다. **미드라**는, 신화의 신성시되는 황소를 살해한 보상으로 불멸하게 됐고, 하늘에 있는 신들 가운데서 인간 종족을 위해 중재하는 자리로 높임 받았다.

이 종파 신봉자들은 동굴 또는 다른 비밀 장소에서 숭배했고, 성가{聖歌}를 불렀으며, 주문{呪文}을 중얼거렸고, 제물로 바친 동물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 피를 마셨다. 그들은 매일 세 번 숭배했고, 태양 신의 날에는 특별한 주간{週間} 예식절차를 결들였으며, 12월 25일인 **미드라** 연중{年中} 축제일에는, 전체 가운데서 가장 공들인 행사를 치렀다.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보장, 즉 죽은 후에 즉시 **미드라**의 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심판의 날까지 행복을 누리면서 머문다고 믿었다. 심판 날에는, 신실한 자들을 영접하

old, a god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which concept was derived from the observation of the annually recurring stoppage of vegetation growth followed by the springtime restoration of all living plants. The frenzy of the observance of these mystery cults and the orgies of their ceremonials, which were supposed to lead up to the “enthusiasm” of the realization of divinity, were sometimes most revolting.

5. THE CULT OF MITHRAS

98:5.1 (1082.2) The Phrygian and Egyptian mysteries eventually gave way before the greatest of all the mystery cults, the worship of Mithras. The Mithraic cult made its appeal to a wide range of human nature and gradually supplanted both of its predecessors. Mithraism spread over the Roman Empire through the propagandizing of Roman legions recruited in the Levant, where this religion was the vogue, for they carried this belief wherever they went. And this new religious ritual was a great improvement over the earlier mystery cults.

98:5.2 (1082.3) The cult of Mithras arose in Iran and long persisted in its homeland despite the militant opposition of the followers of Zoroaster. But by the time Mithraism reached Rome, it had become greatly improved by the absorption of many of Zoroaster's teachings. It was chiefly through the Mithraic cult that Zoroaster's religion exerted an influence upon later appearing Christianity.

98:5.3 (1082.4) The Mithraic cult portrayed a militant god taking origin in a great rock, engaging in valiant exploits, and causing water to gush forth from a rock struck with his arrows. There was a flood from which one man escaped in a specially built boat and a last supper which Mithras celebrated with the sun-god before he ascended into the heavens. This sun-god, or Sol Invictus, was a degeneration of the Ahura-Mazda deity concept of Zoroastrianism. Mithras was conceived as the surviving champion of the sun-god in his struggle with the god of darkness. And in recognition of his slaying the mythical sacred bull, Mithras was made immortal, being exalted to the station of intercessor for the human race among the gods on high.

98:5.4 (1082.5) The adherents of this cult worshiped in caves and other secret places, chanting hymns, mumbling magic, eating the flesh of the sacrificial animals, and drinking the blood. Three times a day they worshiped, with special weekly ceremonials on the day of the sun-god and with the most elaborate observance of all on the annual festival of Mithras, December twenty-fifth. It was believed that the partaking of the sacrament ensured eternal life, the immediate passing, after death, to the bosom of Mithras, there to tarry in bliss until

기 위해서, **미드라**가 가진 천국의 열쇠들이 **낙원**의 문들을 열 것이며; 그 후에는 **미드라**가 이 땅에 돌아옴으로써, 산 자나 죽은 자나 세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절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 받기 위해서 **미드라** 앞으로 인도된다고 가르쳤으며, 세상의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무덤에서 나온 모든 죽은 자를 **미드라**가 소집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악한 자는 불로 멸망하고, 의로운 자는 **미드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였고, 믿는 자들이 잇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다른 계층이 있었다. 나중에는, 믿는 자의 아내와 딸들이 **위대한 어머니**의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은 **미드라** 신전 가까이 있었다. 여자의 종파는, **미드라** 제례식과, **아티스**의 어머니 **퀴벨레**를 믿는 **프리지아** 종파 예식이 혼합된 것이었다.

6.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여러 신비 종파와 **그리스도교**가 도래하기 전에, **북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명화된 땅에서 개인적 종교가 독립된 제도로 발전되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종교는 오히려, 가족, 도시 국가, 정치, 및 제국의 일이었다.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은, 중앙에 집중된 숭배 체계를 발전시킨 적이 없었으며; 제례식은 지역에 국한했으며; 사제계층이 없었고 “신성한 책”도 없었다. **로마인**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 제도에는 상류의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보존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 매개체가 없었다. 종교의 제도화가 대개 그 영적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크던지 작던지, 어느 정도 제도적 조직의 도움 없이는 어떤 종교든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회의론파, **견유학파**, **에피쿠로스파**, 및 **스토아학파**의 시절까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새 종교와 **미드라교**가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던 시절까지, **서양**의 종교는 그렇게 시들어 있었다.

기원후 3세기에,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교회는 외형과 제례식의 특성에서 매우 흡사했다. 그런 예배 장소 대부분은 지하에 있었고 제단(祭壇)이 있었는데, 제단의 배경은 죄의 저주를 받은 인간 종족에게 구원을 가져온 구원자의 고난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그림이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스런 물에 손가락을 적시는 것이 **미드라** 숭배자의 풍습이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동시에 두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대다수의

the judgment day. On the judgment day the Mithraic keys of heaven would unlock the gates of Paradise for the reception of the faithful; whereupon all the unbaptized of the living and the dead would be annihilated upon the return of Mithras to earth. It was taught that, when a man died, he went before Mithras for judgment, and that at the end of the world Mithras would summon all the dead from their graves to face the last judgment. The wicked would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righteous would reign with Mithras forever.

98:5.5 (1082.6) At first it was a religion only for men, and there were seven different orders into which believers could be successively initiated. Later on, the wives and daughters of believers were admitted to the temples of the Great Mother, which adjoined the Mithraic temples. The women's cult was a mixture of Mithraic ritual and the ceremonies of the Phrygian cult of Cybele, the mother of Attis.

6. MITHRAISM AND CHRISTIANITY

98:6.1 (1083.1) Prior to the coming of the mystery cults and Christianity, personal religion hardly developed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in the civilized lands of North Africa and Europe; it was more of a family, city-state, political, and imperial affair. The Hellenic Greeks never evolved a centralized worship system; the ritual was local; they had no priesthood and no “sacred book.” Much as the Romans, their religious institutions lacked a powerful driving agency for the preservation of higher moral and spiritual values. While it is tru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igion has usually detracted from its spiritual quality, it is also a fact that no religion has thus far succeeded in surviving without the aid of institutional organization of some degree, greater or lesser.

98:6.2 (1083.2) Occidental religion thus languished until the days of the Skeptics, Cynics, Epicureans, and Stoics, but most important of all, until the times of the great contest between Mithraism and Paul's new religion of Christianity.

98:6.3 (1083.3) During the third century after Christ, Mithraic and Christian churches were very similar both in appearance and in the character of their ritual. A majority of such places of worship were underground, and both contained altars whose backgrounds variously depicted the sufferings of the savior who had brought salvation to a sin-cursed human race.

98:6.4 (1083.4) Always had it been the practice of Mithraic worshipers, on entering the temple, to dip their fingers in holy water. And since in some districts there were those who at one time belonged to both religions, they introduced this

그리스도교 교회에 이 관습을 들여왔다. 두 종교가 세례를 베풀었고, 빵과 포도주로 성례를 거행했다. **미트라**와 **예수**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큰 차이점 하나는, 전자는 군국주의를 장려한 반면, 후자는 지나치게 평화적이었다. (후대의 **그리스도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을 묵인한 것이, **미트라교**의 마지막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두 종교 사이의 갈등에서 결정적 요소는, 여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온전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었다.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교** 신앙이 **서양**을 지배했다. **그리스** 철학은 윤리적 가치의 개념을; **미트라교**는 경배 관례의 제례식을;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 도덕적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존 기법을 제공했다.

7. 그리스도교

창조주 아들이 필사적 몸의 모습으로 육신화하고 **유란시아** 인류에게 자신을 증여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속죄{贖罪} 교리를 부르짖은 위대한 주창자도 이런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전파를 다루는 것은 본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는 인간으로 육신화한, **네바돈의 미가엘 아들**, **유란시아**에 **그리스도**로 알려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 **갈릴리인**을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레반트**와 **서양** 전역에 퍼뜨렸고, 그들의 선교 열정은 **아시아**에서 동시대에 살던 진지한 사람들, 즉 **불교**를 가르친 선생들뿐 아니라, 뛰어난 선구자, 즉 **셀족속**과 **살렘** 사람들의 열정과 견줄 만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유란시아** 믿음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 영향, 믿음, 종파, 그리고 개인적 개별적 의견이 복합됨으로써 형성됐다:

1. **멜기세덱**의 교훈, 이것은 지나간 4천 년 동안에 발생했던 **서양**과 **동양**의 모든 종교에 기본 요소다.

2. **히브리인**의 도덕, 윤리, 및 신학의 체계, 그리고 **섭리**와 최고 **야훼**에 대한 믿음 체계.

3. 시공우주의 선과 악이 싸운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생각, 이것은 이미 **유대교**와 **미트라교** 양쪽에 그 흔적을 남겼다.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custom into the majority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the vicinity of Rome. Both religions employed baptism and partook of the sacrament of bread and wine. The one great difference between Mithraism and Christianity, aside from the characters of Mithras and Jesus, was that the one encouraged militarism while the other was ultrapacific. Mithraism's tolerance for other religions (except later Christianity) led to its final undoing. But the deciding factor in the struggle between the two was the admission of women in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Christian faith.

98:6.5 (1083.5) In the end the nominal Christian faith dominated the Occident. Greek philosophy supplied the concepts of ethical value; Mithraism, the ritual of worship observance; and Christianity, as such, the technique for the conservation of moral and social values.

7. THE CHRISTIAN RELIGION

98:7.1 (1083.6) A Creator Son did not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bestow himself upon the humanity of Urantia to reconcile an angry God but rather to win all mankind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s love and to the realization of their sonship with God. After all, even the great advocate of the atonement doctrine realized something of this truth, for he declared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98:7.2 (1083.7) It is not the province of this paper to deal with the origin and dissemina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Suffice it to say that it is built around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the humanly incarnate Michael Son of Nebadon, known to Urantia as the Christ, the anointed one. Christianity was spread throughout the Levant and Occident by the followers of this Galilean, and their missionary zeal equaled that of their illustrious predecessors, the Sethites and Salemites, as well as that of their earnest Asiatic contemporaries, the Buddhist teachers.

98:7.3 (1084.1) The Christian religion, as a Urantian system of belief, arose through the compounding of the following teachings, influences, beliefs, cults, and personal individual attitudes:

98:7.4 (1084.2) 1. The Melchizedek teachings, which are a basic factor in all the religions of Occident and Orient that have arisen in the last four thousand years.

98:7.5 (1084.3) 2. The Hebraic system of morality, ethics, theology, and belief in both Providence and the supreme Yahweh.

98:7.6 (1084.4) 3. The Zoroastrian conception of the struggle between cosmic good and evil, which had already left its imprint on both Judaism and Mithraism. Through prolonged contact attendant

사이의 투쟁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이란** 선지자의 교리는, **예수**의 교훈이 **헬라**화 되고 **리틴**화 된 개정판에 담긴, 교의, 주의{主義}, 그리고 우주론의 신학적 및 철학적 기질과 구조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됐다.

4. 신비 종파들, 특히 **미드라고**, 그뿐만 아니라 **프리지아** 종파에서 **위대한 어머니** 숭배.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탄생했다는 전설조차, **이란**의 구원자이자 영웅인 **미드라**가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는 **로마** 식 해석으로 오염됐는데, **미드라**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선물을 바치는 몇몇 목동에 게만 목격됐으며, 그 목동들은 임박한 이 사건을 천사들로부터 이미 들었다고 생각돼 왔다.

5. **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생애라는 역사적 사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의 실체.

6. **다소**의 **바울**이 가진 개인적 견해. 더욱이, **바울**이 소년이었을 때 **미드라고**가 **다소**의 지배적 종교였음이 기록돼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선의{善意}에서 쓴 편지들이, 어느 날 더 후대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선의로 쓴 그런 선생들의 기록을 후대에 계승한 자들이 이용해 먹은 책임을, 그 선생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7.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를 거쳐서 **시라큐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배했던, **헬라** 민족들의 철학적 사고. **그리스인**의 철학은, 다른 어떤 현행 종교 체계보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개정판에 더 잘 조화됐으며,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리스** 철학은 **바울**의 신학과 함께, 여전히 **유럽인**의 윤리적 기초를 이룬다.

예수의 원래 교훈은, **서양** 세계로 들어가자 **서양화**{西洋化} 됐고, **서양화** 됨에 따라서, 모든 인종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잠재된 보편적 호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백인종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사회관행에 잘 적응된 종교가 돼버렸다.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되기를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그 가르침의 방법을 따라서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그런 개인들에게, **예수**에 관한 아름다운 종교를 아직도 용감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를 미화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주님**이 친히 전하신 복음, 즉: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관계임을 대체로 잊어버렸다.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준 교훈에 대한 긴 이야기다. **네바돈**의 이 비상대책 **아들**이 자신을 **유란시아**에 증여한 지 거의 4천 년이 됐으며, 당시의 “**엘 엘리온**, **지고자 하나님**의 제

upon the struggles between Mithraism and Christianity, the doctrines of the Iranian prophet became a potent factor in determining the theologic and philosophic cast and structure of the dogmas, tenets, and cosmology of the Hellenized and Latinized versions of the teachings of Jesus.

98:7.7 (1084.5) 4. The mystery cults, especially Mithraism but also the worship of the Great Mother in the Phrygian cult. Even the legends of the birth of Jesus on Urantia became tainted with the Roman version of the miraculous birth of the Iranian savior-hero, Mithras, whose advent on earth was supposed to have been witnessed by only a handful of gift-bearing shepherds who had been informed of this impending event by angels.

98:7.8 (1084.6) 5. The historic fact of the human life of Joshua ben Joseph, the reality of Jesus of Nazareth as the glorified Christ, the Son of God.

98:7.9 (1084.7) 6. The personal viewpoint of Paul of Tarsus. And it should be recorded that Mithraism was the dominant religion of Tarsus during his adolescence. Paul little dreamed that his well-intentioned letters to his converts would someday be regarded by still later Christians as the “word of God.” Such well-meaning teachers must no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use made of their writings by later-day successors.

98:7.10 (1084.8) 7. The philosophic thought of the Hellenistic peoples, from Alexandria and Antioch through Greece to Syracuse and Rome.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was more in harmony with Paul's version of Christianity than with any other current religious system and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Christianity in the Occident. Greek philosophy, coupled with Paul's theology, still forms the basis of European ethics.

98:7.11 (1084.9) As the original teachings of Jesus penetrated the Occident, they became Occidentalized, and as they became Occidentalized, they began to lose their potentially universal appeal to all races and kinds of men. Christianity, today, has become a religion well adapted to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mores of the white races. It has long since ceased to be the religion of Jesus, although it still valiantly portrays a beautiful religion about Jesus to such individuals as sincerely seek to follow in the way of its teaching. It has glorified Jesus as the Christ, the Messianic anointed one from God, but has largely forgotten the Master's personal gospel: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all men.

98:7.12 (1085.1) And this is the long story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on Urantia. It is nearly four thousand years since this emergency Son of Nebadon bestowed himself on Urantia, and in that time the teachings of the

사장”에 대한 교훈은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키벤타**는 자신의 특수한 증여 목적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으며;**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출현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개념이 남녀의 가슴속에 존재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 개념은, **만유의 아버지**의 다채로운 자녀가, 흥미를 자아내는 생애를 공간의 회전하는 행성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생생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불타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God,” have penetrated to all races and peoples. And Machiventa was successful in achieving the purpose of his unusual bestowal; when Michael made ready to appear on Urantia, the God concept was existent in the hearts of men and women, the same God concept that still flames anew in the living spiritual experience of the manifold children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y live their intriguing temporal lives on the whirling planets of space.

98:7.13 (1085.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99편. 종교의 사회적 문제

⇨ 098

유란시아 책

10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99편
종교의 사회적 문제

섹션

소개

1. 종교와 사회 재건
2. 제도화된 종교의 약점
3. 종교와 종교인
4. 과도기의 어려움
5. 종교의 사회적 양상
6. 제도화된 종교
7. 종교의 공헌

소개

종교가 사회에서 세속의 제도와 관련이 가장 적을 때, 종교는 가장 높은 사회 공헌을 이룩한다. 지난 시대에는, 사회 개혁이 주로 도덕 영역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종교는 그 태도를,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에서 일어나는 광범한 변화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다. 종교의 주요 문제는, 정치 및 경제 문화에 현존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선으로 악을 대체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종교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간접적으로 영속시키고, 현존하는 유형의 문명이 유지되도록 조장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거나 오래된 질서를 보존하는 데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참된 종교는, 사회를 진화시키는 기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사회가 자체의 제도를 적응시키고, 사회의 제도를 새 경제 조건과 문화적 요구에 맞게 조절하려고 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종교는 과거 여러 세기에 간헐적으로 일어난 사회 개혁을 인정했지만, 20세기에는 광범하면서

PAPER 99
THE SOCIAL PROBLEMS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1. Relig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2. Weakness of Institutional Religion
3. Religion and the Religionist
4. Transition Difficulties
5. Social Aspects of Religion
6. Institutional Religion
7. Religion's Contribution

INTRODUCTION

99:0.1 (1086.1) RELIGION achieves its highest social ministry when it has least connection with the secular institutions of society. In past ages, since social reforms were largely confined to the moral realms, religion did not have to adjust its attitude to extensive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e chief problem of religion was the endeavor to replace evil with good within the existing social order of political and economic culture. Religion has thus indirectly tended to perpetuate the established order of society, to foster the maintenance of the existent type of civilization.

99:0.2 (1086.2) But religion should not be directly concerned either with the creation of new social orders or with the preservation of old ones. True religion does oppose violence as a technique of social evolution, but it does not oppose the intelligent efforts of society to adapt its usages and adjust its institutions to new 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al requirements.

99:0.3 (1086.3) Religion did approve the occasional social reforms of past centuries, but in the

계속적인 사회 재건에 따른 조정에 직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삶의 조건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은 크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종교는 이런 새롭고 계속 변하는 사회 질서에 맞춰서 재빨리 적응해야 한다.

1. 종교와 사회 재건

기계 발명과 지식 보급이 문명을 변경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재앙을 피하려면, 어떤 경제적 조절과 사회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도래하는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는, 1,000년이 지나도 만족스럽게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종족은, 변화하고, 조절하고, 다시 조절하는 과정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류는 새롭고 드러나지 않은 행성의 운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종교는 도덕적 안정과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상황이 늘 변하고 경제적 조절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돼야 한다.

유란시아의 사회는 결코 지난 시대처럼 안정되기를 바랄 수 없다. 사회라는 배는 확립된 전통으로 보호받던 만(灣)에서 밖으로 나왔고, 진화의 운명이라는 공해(公海)에서 항해를 시작했으며; 사람의 혼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이, 그 도덕성을 보여주는 해도(海圖)를 면밀히 조사하고, 종교적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을 공들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서, 종교의 탁월한 사명은, 문명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즉 한 문화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옮겨가는 이런 위험한 시기 동안에, 인류의 이상(理想)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종교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는 없지만, 새롭고 재빠르게 변하는 이런 인류의 전체 상황에서, 현명한 안내원이자 노련한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사회는 더 기계적이고, 더 밀집되고, 더 복잡하고, 더 위태롭게 서로 의존하게 되고 있다. 종교는, 이런 새롭고 긴밀한 상호관계들이 공동으로 역행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는, 진보라는 효소가 문명의 문화적 맛을 파괴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시공우주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사회 관계와 경제적 격변은, 오직 종교의 사역으로 인해서만, 영속하는 형제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신을 부정하는 인도주의(人道主義)는 고상한 손짓이지만, 다른 집단들의 필

twentieth century it is of necessity called upon to face adjustment to extensive and continuing social reconstruction. Conditions of living alter so rapidly that institutional modifications must be greatly accelerated, and religion must accordingly quicken its adaptation to this new and ever-changing social order.

1. RELIG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99:1.1 (1086.4) Mechanical inventions an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re modifying civilization; certain economic adjustments and social changes are imperative if cultural disaster is to be avoided. This new and oncoming social order will not settle down complacently for a millennium. The human race must become reconciled to a procession of changes,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Mankind is on the march toward a new and unrevealed planetary destiny.

99:1.2 (1086.5) Religion must become a forceful influence for moral stability and spiritual progression functioning dynamically in the midst of these ever-changing conditions and never-ending economic adjustments.

99:1.3 (1086.6) Urantia society can never hope to settle down as in past ages. The social ship has steamed out of the sheltered bays of established tradition and has begun its cruise upon the high seas of evolutionary destiny; and the soul of man, as never before in the world's history, needs carefully to scrutinize its charts of morality and painstakingly to observe the compass of religious guidance. The paramount mission of religion as a social influence is to stabilize the ideals of mankind during these dangerous times of transition from one phase of civilization to another, from one level of culture to another.

99:1.4 (1087.1) Religion has no new duties to perform, but it is urgently called upon to function as a wise guide and experienced counselor in all of these new and rapidly changing human situations. Society is becoming more mechanical, more compact, more complex, and more critically interdependent. Religion must function to prevent these new and intimate interassociations from becoming mutually retrogressive or even destructive. Religion must act as the cosmic salt which prevents the ferments of progression from destroying the cultural savor of civilization. These new social relations and economic upheavals can result in lasting brotherhood only by the ministry of religion.

99:1.5 (1087.2) A godless humanitarianism is, humanly speaking, a noble gesture, but true

요와 고난에 대한 한 사회 집단의 민감성을 영구히 증대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참된 종교뿐이다. 과거에는, 사회의 상류층 사람이 무력한 하류 계층의 고난당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제도화된 종교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하류의 이 사회 계층이, 현대에는 더 이상 그토록 비천하게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력하지 않다.

종교는, 사회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조직하는 세속적인 일에 유기적으로 말려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종교는 자체의 도덕적 명령과 영적 훈계에 대하여, 즉 인간의 삶과 초월적 생존에 관하여, 진취적 철학을 분명하고 활기 있게 다시 진술함으로써, 문명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진보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종교의 기풍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은 인간 언어 사전이 개편될 때마다 다시 진술돼야 한다.

2. 제도화된 종교의 약점

불행하게도 제도화된 종교는, 개조를 꾀도록 예정돼 있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계에 다소간 유기적인 부분이 돼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조직하는 임박한 이 과정에서 영감을 줄 수 없고 지도력을 제공할 수도 없다. 오직 몸소 영적 체험으로 얻는 참된 종교만이, 현재 문명의 위기에서 유익하게 창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화된 종교는 지금 악순환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 그런 종교는, 먼저 자체를 재건하지 않고는 사회를 재건시킬 수 없으며; 기존 질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돼있는 한, 사회가 급진적으로 개조될 때까지 그런 종교는 자체를 개조시킬 수 없다.

종교인은, 사회, 산업, 및 정치 분야에서, 집단이나 정당 또는 기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종교 활동과는 상관없이, 주체님께 그런 역할을 하려는 종교 집단은 곧, 정당, 경제 조직, 또는 사회 기구로 바뀐다. 종교의 집단행동경향은, 그 노력을 종교 운동을 촉진시키는 일에 국한해야 한다.

종교인은, 사회 재건 과정에서 비종교인보다 더 가치가 없는데, 오직 예외는, 그들의 종교가 종교인들에게 증진된 시공우주 선견지명을 베푸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하늘 나라에 있는 형제로서 사랑하려는, 진지한 소망에서 생겨난 그런 뛰어난 사회적 지혜를 부여하는 경우다. 이상적 사회 체제는, 그 체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religion is the only power which can lastingly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one social group to the needs and sufferings of other groups. In the past, institutional religion could remain passive while the upper strata of society turned a deaf ear to the sufferings and oppression of the helpless lower strata, but in modern times these lower social orders are no longer so abjectly ignorant nor so politically helpless.

99:1.6 (1087.3) Religion must not become organically involved in the secular work of soci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reorganization. But it must actively keep pace with all these advances in civilization by making clear-cut and vigorous restatements of its moral mandates and spiritual precepts, its progressive philosophy of human living and transcendent survival. The spirit of religion is eternal, but the form of its expression must be restated every time the dictionary of human language is revised.

2. WEAKNESS OF INSTITUTIONAL RELIGION

99:2.1 (1087.4) Institutional religion cannot afford inspiration and provide leadership in this impending world-wide soci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reorganization because it has unfortunately become more or less of an organic part of the social order and the economic system which is destined to undergo reconstruction. Only the real religion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can function helpfully and creatively in the present crisis of civilization.

99:2.2 (1087.5) Institutional religion is now caught in the stalemate of a vicious circle. It cannot reconstruct society without first reconstructing itself; and being so much an integral part of the established order, it cannot reconstruct itself until society has been radically reconstructed.

99:2.3 (1087.6) Religionists must function in society, in industry, and in politics as individuals, not as groups, parties, or institutions. A religious group which presumes to function as such, apart from religious activities, immediately becomes a political party, an economic organization, or a social institution. Religious collectivism must confine its efforts to the furtherance of religious causes.

99:2.4 (1087.7) Religionists are of no more value in the tasks of social reconstruction than nonreligionists except in so far as their religion has conferred upon them enhanced cosmic foresight and endowed them with that superior social wisdom which is born of the sincere desire to love God supremely and to love every man as a brother in the heavenly kingdom. An ideal social order is

사랑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교회는, 기존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미화시킴으로써, 지난날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살아남으려면 그런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 제도화된 교회의 유일하게 타당한 태도는, 비폭력, 즉 격렬한 혁명 대신 평화로운 진화의 교리--곧 땅에서 평화를 지키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선의를 갖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현대의 종교는, 오직 그 자체가 너무 철저하게 전통화, 교의화, 및 제도화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신속히 바뀌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 태도를 조절하기 어려움을 발견한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종교는, 이 모든 사회 발전과 경제 격변보다 계속 앞서나가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 과정에서 그런 종교는 도덕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내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장치로서 늘 작용한다. 참된 종교는, 가치 있는 문화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체험에서 생겨나는 그 지혜를,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해준다.

3. 종교와 종교인

초기 **그리스도교**는, 모든 국내 분규, 사회적 책무, 그리고 경제적 제후에 매이는 일이 전혀 없었다. 오직 후대의 제도화 된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의 정치 및 사회 구조의 유기적 일부가 됐다.

하늘 나라는 사회 체제도 경제 체제도 아니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의 영적 형제관계일 뿐이다. 정말로, 그런 형제관계는 본래, 놀랄만한 정치적 및 경제적 반응이 수반되는 새롭고 놀라운 사회 현상이다.

종교인은 사회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고, 민간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경제적 견해를 무시하지 않고, 정치적 횡포에 무감각하지도 않다. 개별 시민을 영성화하고 이상화하기 때문에, 종교는 사회 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있는 문명은, 이런 개별 종교인들이, 다양한 사회, 도덕, 경제, 및 정치 집단의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이 됨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도의 문화를 가진 문명의 달성은, 처음에는 이상적 유형의 시민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시민이 그런 진보된 인간 사회의 경제 및 정치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사회 장치를 요구한다.

과도하게 잘못된 감상{感想} 때문에, 교회는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오랫동안 돌봐 왔으며, 이것이 모두 잘 이뤄져 오기는 했지만

that in which every man loves his neighbor as he loves himself.

99:2.5 (1087.8) The institutionalized church may have appeared to serve society in the past by glorifying the establishe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s, but it must speedily cease such action if it is to survive. Its only proper attitude consists in the teaching of nonviolence, the doctrine of peaceful evolution in the place of violent revolution —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all men.

99:2.6 (1088.1) Modern religion finds it difficult to adjust its attitude toward the rapidly shifting social changes only because it has permitted itself to become so thoroughly traditionalized, dogmatized, and institutionalized. The religion of living experience finds no difficulty in keeping ahead of all these social developments and economic upheavals, amid which it ever functions as a moral stabilizer, social guide, and spiritual pilot. True religion carries over from one age to another the worth-while culture and that wisdom which is born of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and striving to be like him.

3. RELIGION AND THE RELIGIONIST

99:3.1 (1088.2) Early Christianity was entirely free from all civil entanglements, social commitments, and economic alliances. Only did later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become an organic part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Occidental civilization.

99:3.2 (1088.3) The kingdom of heaven is neither a social nor economic order; it is an exclusively spiritual brotherhood of God-knowing individuals. True, such a brotherhood is in itself a new and amazing social phenomenon attended by astounding politic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99:3.3 (1088.4) The religionist is not unsympathetic with social suffering, not unmindful of civil injustice, not insulated from economic thinking, neither insensible to political tyranny. Religion influences social reconstruction directly because it spiritualizes and idealizes the individual citizen. Indirectly, cultural civilization is influenced by the attitude of these individual religionists as they become active and influential members of various social, moral, economic, and political groups.

99:3.4 (1088.5) The attainment of a high cultural civilization demands, first, the ideal type of citizen and, then, ideal and adequate social mechanisms wherewith such a citizenry may control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such an advanced human society.

99:3.5 (1088.6) The church, because of overmuch false sentiment, has long ministered to the underprivileged and the unfortunate, and this has

만, 바로 이 감상이, 문명의 진보를 엄청나게 퇴보시킨 인종적으로 퇴화된 혈통들을, 어리석게 영존시키도록 유도해 왔다.

사회를 재건하려는 많은 개인은, 제도화된 종교를 맹렬히 거부하면서, 결국 자신의 사회 개혁을 펴뜨리는 데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그래서 개인적이며 다소 인식되지 않은 그 종교적 동기가, 사회를 재건하는 현대의 계획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이런 모든 유형의 종교 활동의 큰 약점은, 공개된 종교적 비판에서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 유익한 수준까지 자신을 수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설적 비판으로 단련되고, 철학으로 확대되고, 과학으로 정화되고, 충성스런 교제로 양육되는 일이 없으면, 종교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 벌어질 때 참여한 각 나라가, 자체의 종교를 군사적 선전물로 악용할 때에는, 종교가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에 빠질 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랑이 결여된 열의는 종교에 반드시 해로운 반면, 박해는 종교 활동을 전환시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거나 신학적인 추진력을 성취하게 한다.

종교는 오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속과의 부정{不淨}한 제휴로부터 계속 벗어날 수 있다:

1. 비판적으로 교정{矯正}하는 철학.
2. 어떤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제휴에도 매이지 않음.
3. 창조적이고 위안을 주며 사랑을_확장하는 교제.
4. 영적 통찰력을 진취적으로 향상시키고, 시공우주의 진가를 알아봄.
5. 과학적 정신의 태도로 보충함으로써, 광신주의를 방지함.

종교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종교 이외의 어떤 것에도 결코 자신을 관련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어떤 종교인이든지, 한 개별 시민으로서, 어떤 사회, 경제, 또는 정치 재건 운동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어렵기는 해도 바람직한 모든 사회 봉사를 증진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기까지 개별 시민을 인도하도록, 시공우주에 대해 개별 시민의 그런 충성심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영감{靈感}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all been well, but this same sentiment has led to the unwise perpetuation of racially degenerate stocks which have tremendously retarded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99:3.6 (1088.7) Many individual social reconstructionists, while vehemently repudiating institutionalized religion, are, after all, zealously religious in the propagation of their social reforms. And so it is that religious motivation, personal and more or less unrecognized, is playing a great part in the present-day program of social reconstruction.

99:3.7 (1088.8) The great weakness of all this unrecognized and unconscious type of religious activity is that it is unable to profit from open religious criticism and thereby attain to profitable levels of self-correction. It is a fact that religion does not grow unless it is disciplined by constructive criticism, amplified by philosophy, purified by science, and nourished by loyal fellowship.

99:3.8 (1088.9) There is always the great danger that religion will become distorted and perverted into the pursuit of false goals, as when in times of war each contending nation prostitutes its religion into military propaganda. Loveless zeal is always harmful to religion, while persecution diverts the activities of religion into the achievement of some sociologic or theologic drive.

99:3.9 (1089.1) Religion can be kept free from unholy secular alliances only by:

- 99:3.10 (1089.2) 1. A critically corrective philosophy.
- 99:3.11 (1089.3) 2. Freedom from a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lliances.
- 99:3.12 (1089.4) 3. Creative, comforting, and love-expanding fellowships.
- 99:3.13 (1089.5) 4. Progressive enhancement of spiritual insight and the appreciation of cosmic values.

99:3.14 (1089.6) 5. Prevention of fanaticism by the compensations of the scientific mental attitude.

99:3.15 (1089.7) Religionists, as a group, must never concern themselves with anything but *religion*, albeit any one such religionist, as an individual citizen, may become the outstanding leader of some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reconstruction movement.

99:3.16 (1089.7) It is the business of religion to create, sustain, and inspire such a cosmic loyalty in the individual citizen as will direct him to the achievement of success in the advancement of all these difficult but desirable social services.

4. 과도기의 어려움

4. TRANSITION DIFFICULTIES

참된 종교는, 종교인이 사회적으로 향기를 풍기도록 하고, 인간의 교제에 대한 안목을 조성한다. 그러나 종교 집단의 형식화는, 그 집단의 조직화를 촉진시킨 바로 그 가치를 여러 차례 파괴시킨다. 인간의 교우관계와 신성한 종교는, 각각의 성장이 균등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귀중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 연합체--곧 가정, 학교, 및 동교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종교는 새로운 가치기준을 나눠주고, 모든 참된 유머를 고양시킨다.

사회의 지도력은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 바뀌며;종교는 모든 집단 운동이 그 참된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어린이와 더불어, 종교는 가족생활을 통합하는 좋은 약인데, 생생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가족생활은 자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종교 없이도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함은 이 긴밀한 인간 연합체의 어려움을 무척 증대시킨다. 20세기 초기에는 수십 년 동안 가족생활이 개인 종교 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데, 이런 상처는 옛 종교적 충성으로부터, 떠오르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른 쇠퇴에서 생긴다.

참된 종교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이다. 그러나 종교가 개인의 성품 개발과 인간성의 통합 완성을 자극하려면, 종교는 결코 표준화해서는 안 된다. 체험의 평가를 자극하고 호의적인 미끼로 쓰으려면, 종교가 판에 박은 듯이 진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상의 충성심을 촉진시키려면, 종교는 형식화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종류의 격변이 문명의 사회 성장과 경제 성장에 일어나더라도,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지배하는 그런 체험을, 종교가 각 개인 속에 조성한다면 참되고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최상의 실체의 참된 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사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이 교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뜻있게 된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행위를 결정하고 개인의 성과를 좌우한다. 순전히 사실에 관한 지식은,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의 활성화는 감정을 초월하며, 필사자의 인생에서 영적 에너지와 접촉하고 그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인간 체험 전체를 초월 수준에서 통합시킨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20세기에, 과학 시대의 격렬한 변천으로 인한, 경제적 격변, 도덕적 역류, 및 거센 사회적 물결 속에서, 수많은 남녀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려워졌으며;이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

99:4.1 (1089.9) Genuine religion renders the religionist socially fragrant and creates insights into human fellowship. But the formalization of religious groups many times destroys the very values for the promotion of which the group was organized. Human friendship and divine religion are mutually helpful and significantly illuminating if the growth in each is equalized and harmonized. Religion puts new meaning into all group associations — families, schools, and clubs. It imparts new values to play and exalts all true humor.

99:4.2 (1089.10) Social leadership is transformed by spiritual insight; religion prevents all collective movements from losing sight of their true objectives. Together with children, religion is the great unifier of family life, provided it is a living and growing faith. Family life cannot be had without children; it can be lived without religion, but such a handicap enormously multiplies the difficulties of this intimate human association. During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family life, next to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suffers most from the decadence consequent upon the transition from old religious loyalties to the emerging new meanings and values.

99:4.3 (1089.11) True religion is a meaningful way of living dynamically face to face with the commonplace realities of everyday life. But if religion is to stimulate individual development of character and augment integration of personality, it must not be standardized. If it is to stimulate evaluation of experience and serve as a value-lure, it must not be stereotyped. If religion is to promote supreme loyalties, it must not be formalized.

99:4.4 (1089.12) No matter what upheavals may attend the social and economic growth of civilization, religion is genuine and worth while if it fosters in the individual an experience in which the sovereign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prevails, for such is the true spiritual concept of supreme reality. And through love and worship this becomes meaningful as fellowship with man and sonship with God.

99:4.5 (1090.1) After all, it is what one believes rather than what one knows that determines conduct and dominates personal performances. Purely factual knowledge exerts very little influence upon the average man unless it becomes emotionally activated. But the activation of religion is superemotional, unifying the entire human experience on transcendent levels through contact with, and release of, spiritual energies in the mortal life.

99:4.6 (1090.2) During the psychologically unsettled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amid the economic upheavals, the moral crosscurrents, and the sociologic rip tides of the cyclonic transitions of a scientific era, thousands upon thousands of men

며;세계 역사에서 유례없이, 건전한 종교가 주는 위로와 안정을 필요로 한다. 전례 없는 과학적 성취와 기계의 발달에 직면해서, 영적 침체와 철학적 혼돈에 빠져있다.

종교가 이타적이고 사랑 넘치는 사회 봉사를 하려는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종교가 점점 더 사적{私的}인 문제가 돼도--곧 개인 체험이 돼도-- 아무 위험이 없다. 종교는 도시화 및 기계화와 함께, 많은 2차적 영향, 즉:갑작스런 문화의 혼합, 신조의 뒤섞임, 교회의 권위 축소, 가족생활의 변화 때문에 고생했다.

사람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부분적 진보, 성장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곤경:즉 두려움의 진화 종교를 버리면서, 사랑의 계시 종교를 즉시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 특히 심리학은, 오직 두려움, 미신, 및 감정에 아주 많이 의존하는 그런 종교들만 약화시켰다.

변화는 항상 혼란을 동반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쟁하는 종교 철학 사이에 큰 갈등이 끝나기 전에는, 종교계에 평온함이 거의 없을 것이다:

1. 여러 종교의 심령현상(곧 섭리하는 **신격**)에 대한 믿음.
2. 여러 가지 철학의 인본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믿음.
3. 여러 과학 분야의 기계론 및 자연주의 개념들.

시공우주의 실체에 다가가는 이 세 가지 부분적 접근법은, **낙원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고 **지존자의 신격** 안에서 시_공간의 통합을 달성하는, 영, 정신, 및 에너지라는 삼중 실존을 묘사하는, 종교, 철학, 및 우주론의 계시적 발표로 결국 조화를 이루게 돼야 한다.

5. 종교의 사회적 양상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적 체험--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지만, 이 체험의 필연적 결과는--곧 사람이 형제임을 아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조정해서 다른 자아들에게 맞추게 하며, 이것은 종교 생활의 사회 양상 또는 집단 양상을 포함한다. 종교는 먼저, 내적 조정, 즉 개인적 조정이며, 그 다음에는 사회 봉사, 즉 집단적 적응의 문제가 된다. 사람에게 사교성이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종교 집단들이 생기도록 결정한다. 이런 종교 집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and women have become humanly dislocated; they are anxious, restless, fearful, uncertain, and unsettled; as never before in the world's history they need the consolation and stabilization of sound religion.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scientific achievement and mechanical development there is spiritual stagnation and philosophic chaos.

99:4.7 (1090.3) There is no danger in religion's becoming more and more of a private matter — a personal experience — provided it does not lose its motivation for unselfish and loving social service. Religion has suffered from many secondary influences: sudden mixing of cultures, intermingling of creeds, diminution of ecclesiastical authority, changing of family life, together with urbanization and mechanization.

99:4.8 (1090.4) Man's greatest spiritual jeopardy consists in partial progress, the predicament of unfinished growth: forsaking the evolutionary religions of fear without immediately grasping the revelatory religion of love. Modern science, particularly psychology, has weakened only those religions which are so largely dependent upon fear, superstition, and emotion.

99:4.9 (1090.5) Transi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confusion, and there will be little tranquillity in the religious world until the great struggle between the three contending philosophies of religion is ended:

99:4.10 (1090.6) 1. The spiritistic belief (in a providential Deity) of many religions.

99:4.11 (1090.7) 2. The humanistic and idealistic belief of many philosophies.

99:4.12 (1090.8) 3. The mechanistic and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any sciences.

99:4.13 (1090.9) And these three partial approaches to the reality of the cosmos must eventually become harmonized by the revelatory presentation of religion, philosophy, and cosmology which portrays the triune existence of spirit, mind, and energy proceeding from the Trinity of Paradise and attaining time-space unification within the Deity of the Supreme.

5. SOCIAL ASPECTS OF RELIGION

99:5.1 (1090.10) While religion is exclusively a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 knowing God as a Father — the corollary of this experience — knowing man as a brother — entails the adjustment of the self to other selves, and that involves the social or group aspect of religious life. Religion is first an inner or personal adjustment, and then it becomes a matter of social service or group adjustment. The fact of man's gregariousness performance determines that religious

것은, 총명한 지도층에 아주 크게 달려있다. 원시 공동체에서 종교 집단은 반드시 경제 집단이나 정치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는 항상 도덕을 보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존재였다. 현대에 많은 사회주의자와 인본주의자가 반대로 가르침에도, 이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항상 염두에 뒤라:참된 종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너희 형제임을 아는 것이다. 종교는, 형벌의 위협 또는 미래의 신비스런 보상이라는 마술적 약속에 대한 노예근성의 믿음이다.

일찍이 인류를 활성화시킨 것 중에서, **예수**의 종교가 가장 역동적인 영향력이다. **예수**는 전통을 무너뜨렸고, 교의를 파괴했으며, 현재와 내세에서 가장 높은 이상을 성취하라고--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고--인류를 불렀다.

종교 집단이 모든 다른 집단에서--곧 하늘 나라의 영적 구성원의 사회 연합체에서--분리될 때까지, 종교는 활동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인간의 전적{全的} 타락이라는 교리가, 항상 시키는 본성과 영감 주는 가치를 갖는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종교의 잠재력 대부분을 파괴시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려고 애썼다.

신자를 영적으로 만들기에 효과 있는 어떤 종교 신념이든지, 그런 종교인의 사회생활에서 강력한 반응을 반드시 일으키게 돼있다. 종교 체험은, 영의 인도를 받는 필사자의 일상생활에서 “영의 열매”를 틀림없이 맺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서로 나누는 만큼, 공통 목표를 결국 창출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 집단을 확실히 만들어 낸다. 종교인은, 심리학의 견해와 신학적 신념의 토대 위에서 협동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통일된 이상{理想}과 목적에 기초를 두고 실제로 협동할 것이다. 신조{信條}가 아니라 목표가 종교인을 통합시켜야 한다. 참된 종교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이므로, 각 종교인은 그 영적 체험의 실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게 돼있다.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인간 집단이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태도로 동의할 수 있는 공식화된 신경{信經}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허용하라. “너에게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너 자신에게만 적용하라.”

신앙이 오직 이상적 가치의 파악과 관계있음은, **신약 성경**의 정의에 잘 묘사돼 있는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groups will come into existence. What happens to these religious groups depends very much on intelligent leadership. In primitive society the religious group is not always very different from economic or political groups. Religion has always been a conservator of morals and a stabilizer of society. And this is still true, notwithstanding the contrary teaching of many modern socialists and humanists.

99:5.2 (1091.1) Always keep in mind: True religion is to know God as your Father and man as your brother. Religion is not a slavish belief in threats of punishment or magical promises of future mystical rewards.

99:5.3 (1091.2) The religion of Jesus is the most dynamic influence ever to activate the human race. Jesus shattered tradition, destroyed dogma, and called mankind to the achievement of its highest ideals in time and eternity —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99:5.4 (1091.3) Religion has little chance to function until the religious group becomes separated from all other groups — the social association of the spiritual membership of the kingdom of heaven.

99:5.5 (1091.4) The doctrine of the total depravity of man destroyed much of the potential of religion for effecting social repercussions of an uplifting nature and of inspirational value. Jesus sought to restore man's dignity when he declared that all men are the children of God.

99:5.6 (1091.5) Any religious belief which is effective in spiritualizing the believer is certain to have powerful repercussions in the social life of such a religionist. Religious experience unfailingly yield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daily life of the spirit-led mortal.

99:5.7 (1091.6) Just as certainly as men share their religious beliefs, they create a religious group of some sort which eventually creates common goals. Someday religionists will get together and actually effect co-operation on the basis of unity of ideals and purposes rather than attempting to do so on the basis of psychological opinions and theological beliefs. Goals rather than creeds should unify religionists. Since true religion is a matter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t is inevitable that each individual religionist must have his own and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realization of that spiritual experience. Let the term “faith” stand for the individual's relation to God rather than for the creedal formulation of what some group of mortals have been able to agree upon as a common religious attitude. “Have you faith? Then have it to yourself.”

99:5.8 (1091.7) That faith is concerned only with the grasp of ideal values is shown by the New Testament definition which declares that faith is

이라고 선언한다.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 신념을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원시인의 종교는 생각보다 춤으로 표출됐다. 현대인은 여러 신조를 생각해냈고, 종교적 신앙에 대한 많은 기준을 만들어냈다. 미래의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전심으로 봉사하는 데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제는 사람의 종교 체험이 너무 개인적이고 고상해서, 오직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있는 느낌”으로만 그 체험을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무르익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에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공통적 믿음을 나타내는 말의 형식을 암송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규정한 것은, 그들이 서로 모여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라 --곧 **유란시아**에 증여된 **예수**의 생애를 기념하는 공동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이상{理想}이라고 제시하면서, 지나간 시절 동안 특정한 국가적 또는 인종적 계몽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에 남을만한 지도자였음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남녀에게 감히 요구했을 때, **그리스도교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6. 제도화된 종교

여러 분파로 갈라지는 것은 제도적 종교의 병폐이며, 독단적 태도는 영적 본성을 노예로 만든다. 종교가 없는 교회보다는, 교회가 없는 종교를 갖는 것이 훨씬 낫다. 20세기의 종교적 혼란은, 그 자체로, 영적 퇴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혼란은 파괴에 앞설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전에도 나타난다.

종교의 사회화{社會化}에는 참된 목적이 있다. 집단 종교 활동의 목적은, 종교의 충성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기;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매력을 확대하기;높은 가치의 매력을 조성하기;사심 없이 교제하는 섬김을 증진시키기;가족생활의 잠재력을 찬미하기;종교 교육을 증진시키기;현명한 상담과 영적 안내를 제공하기;모여서 경배하기 등을 장려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친분 관계를 촉진시키고, 도덕성을 유지하며, 이웃의 복지{福祉}를 증진시키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각 종교의 메시지에 담긴 근본적 복음의 전파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됨에 따라서, 그 종교가 선{善}을 행할 능력은 줄어들고, 악{惡}을 행할 가능성은 크게 늘어난다. 형식화 된 종교의 위험성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믿음이 경직되고 정서가 결정화{結晶化} 됨;세속화의 증가에 따라 기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99:5.9 (1091.8) Primitive man made little effort to put his religious convictions into words. His religion was danced out rather than thought out. Modern men have thought out many creeds and created many tests of religious faith. Future religionists must live out their religion, dedicate themselves to the wholehearted serv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It is high time that man had a religious experience so personal and so sublime that it could be realized and expressed only by “feelings that lie too deep for words.”

99:5.10 (1091.9) Jesus did not require of his followers that they should periodically assemble and recite a form of words indicative of their common beliefs. He only ordained that they should gather together to actually *do something* — partake of the communal supper of the remembrance of his bestowal life on Urantia.

99:5.11 (1091.10) What a mistake for Christians to make when, in presenting Christ as the supreme ideal of spiritual leadership, they dare to require God-conscious men and women to reject the historic leadership of the God-knowing men who have contributed to their particular national or racial illumination during past ages.

6. INSTITUTIONAL RELIGION

99:6.1 (1092.1) Sectarianism is a disease of institutional religion, and dogmatism is an enslavement of the spiritual nature. It is far better to have a religion without a church than a church without religion. The religious turmoil of the twentieth century does not, in and of itself, betoken spiritual decadence. Confusion goes before growth as well as before destruction.

99:6.2 (1092.2) There is a real purpose in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It is the purpose of group religious activities to dramatize the loyalties of religion; to magnify the lure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o foster the attractions of supreme values; to enhance the service of unselfish fellowship; to glorify the potentials of family life; to promote religious education; to provide wise counsel and spiritual guidance; and to encourage group worship. And all live religions encourage human friendship, conserve morality, promote neighborhood welfare, and facilitate the spread of the essential gospel of their respective messages of eternal salvation.

99:6.3 (1092.3) But as religion becomes institutionalized, its power for good is curtailed, while the possibilities for evil are greatly multiplied. The dangers of formalized religion are: fixation of beliefs and crystallization of sentiments;

특권이 누적됨;진리를 표준화시키고 화석화시키려는 경향;**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바꾸려는 종교적 전환;성직자보다 경영자가 되려는 지도자들의 성향;파벌을 조성하고 경쟁적 분파를 만들려는 경향;압제적인 교회 권세를 세움;귀족적인 “선택받은 민족”의 태도를 창시함;신성시됨에 대한 잘못되고 과장된 개념을 조장함;종교를 관례화 시키고 경배를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현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과거를 공경하려는 경향;종교를 현대에 맞게 해석하지 못함;세속 제도의 기능과 뒤얽힘;종교 신분계층이라는 악한 차별 제도를 만들;관행에 따른 편협한 판결을 내리게 됨;모험적인 젊은이의 흥미를 끄는 데 실패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구원하는 메시지를 점차 잃어버림.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로서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사람을 풀어주는 커녕,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적 활동을 제한한다.

7. 종교의 공헌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종교 집단은 모든 세속 활동에서 멀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종교는 인간 제도의 사회적 조정을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어떤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의미심장한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 하며;사람은 반드시 자기 철학을 개혁하고 종교를 정화{淨化}시키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학은 사회과학에서 배운 기법으로, 그리고 종교 생활이 제공하는 통찰력과 동기를 가지고, 경제조건과 산업을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 모든 사회 재건에서 종교는, 초월적 객체, 즉 당면한 현세의 목표를 넘어서고 그 위에 있는 어떤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안정시키는 충성심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오는 혼란의 한 가운데서, 필사적 사람은 광범한 시공우주 관점으로부터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종교는, 지구 표면에서 용기 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인내와 열정을, 열의에 통찰력을, 동정심과 능력을, 그리고 이상{理想}과 에너지를 연결시킨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명상하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가진 여러 현실을 헤아리지 않으면, 사람은 현세의 문제를 현명하게 결정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사회가 형제처럼 지내는 것은 결국 형제관계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꿈꾸는 자이지만, 과학은 사람

accumulation of vested interests with increase of secularization; tendency to standardize and fossilize truth; diversion of religion from the service of God to the service of the church; inclination of leaders to become administrators instead of ministers; tendency to form sects and competitive divisions; establishment of oppressive ecclesiastical authority; creation of the aristocratic “chosen-people” attitude; fostering of false and exaggerated ideas of sacredness; the routinizing of religion and the petrification of worship; tendency to venerate the past while ignoring present demands; failure to make up-to-date interpretations of religion; entanglement with functions of secular institutions; it creates the evil discrimination of religious castes; it becomes an intolerant judge of orthodoxy; it fails to hold the interest of adventurous youth and gradually loses the saving message of the gospel of eternal salvation.

99:6.4 (1092.4) Formal religion restrains men in their personal spiritual activities instead of releasing them for heightened service as kingdom builders.

7. RELIGION'S CONTRIBUTION

99:7.1 (1092.5) Though churches and all other religious groups should stand aloof from all secular activities, at the same time religion must do nothing to hinder or retard the social co-ordination of human institutions. Life must continue to grow in meaningfulness; man must go on with his reformation of philosophy and his clarification of religion.

99:7.2 (1092.6) Political science must effect the reconstruction of economics and industry by the techniques it learns from the social sciences and by the insights and motives supplied by religious living. In all social reconstruction religion provides a stabilizing loyalty to a transcendent object, a steadying goal beyond and above the immediate and temporal objective.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s of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mortal man needs the sustenance of a far-flung cosmic perspective.

99:7.3 (1093.1) Religion inspires man to live courageously and joyfully on the face of the earth; it joins patience with passion, insight to zeal, sympathy with power, and ideals with energy.

99:7.4 (1093.2) Man can never wisely decide temporal issues or transcend the selfishness of personal interests unless he meditates in the presence of the sovereignty of God and reckons with the realities of divine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99:7.5 (1093.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social fraternity will ultimately conduce to brotherhood. Man is naturally a dreamer, but science is

을 정신 차리게 만들며, 그래서 종교는, 광신적 반응으로 거꾸러지는 위험성을 훨씬 줄이면서, 사람을 즉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다. 경제적 필요는 사람을 현실에 묶이게 만들며, 몸소 겪는 종교체험은, 바로 그 사람이 항상 발전하고 진보하는 시공 우주 시민신분이라는 영원한 현실과 얼굴을 마주하도록 이끌어 준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sobering him so that religion can presently activate him with far less danger of precipitating fanatical reactions. Economic necessities tie man up with reality, and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brings this same man face to face with the eternal realities of an ever-expanding and progressing cosmic citizenship.

99:7.6 (1093.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0편.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

⇨ 099

유란시아 책

10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0편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

섹션

소개

1. 종교적 성장
2. 영적 성장
3. 최상의 가치에 관한 여러 개념
4. 성장의 문제
5. 회심과 신비주의
6. 종교 생활의 징후
7. 종교 생활의 절정

PAPER 100

RELIGION IN HUMAN EXPERIENCE

SECTIONS

Introduction

1. Religious Growth
2. Spiritual Growth
3. Concepts of Supreme Value
4. Problems of Growth
5. Conversion and Mysticism
6. Marks of Religious Living
7. The Acme of Religious Living

소개

역동적인 종교 생활 체험은, 평범한 개인을, 이상주의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변화시킨다. 종교는 각 개인의 진보를 촉진시킴으로써 전체의 진보에 공헌하며, 각 개인의 진보는 전체의 성취를 통해서 증대된다.

다른 종교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자극한다. 사랑은, 종교적 성장-곧 주관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객관적 매력-에 토양을 제공하며, 더욱이 최상의 주관적 만족감을 낳는다. 그리고 종교는 일상생활의 진부한 고역{苦役}을 고상하게 만든다.

INTRODUCTION

100:0.1 (1094.1) THE experience of dynamic religious living transforms the mediocre individual into a personality of idealistic power. Religion ministers to the progress of all through fostering the progress of each individual, and the progress of each is augmented through the achievement of all.

100:0.2 (1094.2) Spiritual growth is mutually stimulated by intimate association with other religionists. Love supplies the soil for religious growth — an objective lure in the place of subjective gratification — yet it yields the supreme subjective satisfaction. And religion ennobles the commonplace drudgery of daily living.

1. 종교적 성장

종교는 의미의 성장과 가치기준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평가{評價}를 절대불변 수준으로 높일 때, 반드시 악{惡}이 생겨난다. 어린이는 즐거움의 크기에 따라서 체험을 평가하며; 성숙도는 개인의 즐거움 대신, 더 높은 의미를 찾는 정도, 즉 다양해진 생활환경과 시공우주 관계에서 최고 개념에 충성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높

1. RELIGIOUS GROWTH

100:1.1 (1094.3) While religion produces growth of meanings and enhancement of values, evil always results when purely personal evaluations are elevated to the levels of absolutes. A child evaluates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pleasure; maturity is proportional to the substitution of higher meanings for personal

아진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성장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착{固着}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의미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서로 다른 시대에, 계속되는 문화에서, 그리고 증진하는 문명의 진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편견과 무지가 성장의 주요 방해요소다.

성장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자신의 종교 체험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진부한 어른의 체험을 그에게 강요하지 말라. 확립된 교육 체계를 통해서 매년 진보되는 것이 반드시 지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영적 성장은 더욱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성품의 발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진행되는 정도로 참되게 표시된다. 참다운 교육의 성장은, 이상{理想}의 향상, 가치에 대한 증대된 감상, 가치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최상의 가치에 대한 증가된 충성심으로 표시된다.

어린이는 오직 어른 지인{知人}들의 충실함으로만 영구적으로 감명 받으며;교훈이나 본보기조차 오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실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며;성장은 감명을 주고 영감을 일으키는 실체다. 지금 충실하게 살면--즉 성장하면--그 결과가 나중에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순간마다 올챙이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종교적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토양{土壤}은, 자아를 실현하는 진취적 생활, 타고난 성향의 조화, 호기심 발동 및 타당한 모험심 향유, 만족감 체험, 주목하고 경계하도록 자극하는 두려움의 작용, 경이감의 매력, 그리고 겸손, 즉 자신이 보잘 것 없음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성장은 또한, 개성의 발견과 그에 따른 자기비평--곧 양심--에 입각하는데, 이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 습성, 즉 개인의 이상{理想}에 따라서 스스로를 비평하는 것이, 정말로 양심이기 때문이다.

종교 체험은 육체의 건강, 유전된 기질, 및 사회 환경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현세의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1094.4}의 뜻을 행함에 몰두하는 혼이 이룩하는 내면의 영적 진보를 막지 못한다.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 속에는, 그들이 특별히 억압하지만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성장과 자아 실현을 향한 어떤 타고난 본능적 욕구가 있다. 영적 성장 잠재력을 갖는 이 구조적 재능을 육성하는 확실한 기법은, 최상의 가치에 대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종교는, 증여되거나, 받거나, 빌리거나, 배우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pleasure, even loyalties to the highest concepts of diversified life situations and cosmic relations.

100:1.2 (1094.4) Some persons are too busy to grow and are therefore in grave danger of spiritual fixation. Provision must be made for growth of meanings at differing ages, in successive cultures, and in the passing stages of advancing civilization. The chief inhibitors of growth are prejudice and ignorance.

100:1.3 (1094.5) Give every developing child a chance to grow his own religious experience; do not force a ready-made adult experience upon him. Remember, year-by-year progress through an established educational regime does not necessarily mean intellectual progress, much less spiritual growth. Enlargement of vocabulary does not signify development of character. Growth is not truly indicated by mere products but rather by progress. Real educational growth is indicated by enhancement of ideals, increased appreciation of values, new meanings of values, and augmented loyalty to supreme values.

100:1.4 (1094.6) Children are permanently impressed only by the loyalties of their adult associates; precept or even example is not lastingly influential. Loyal persons are growing persons, and growth is an impressive and inspiring reality. Live loyally today — grow — and tomorrow will attend to itself. The quickest way for a tadpole to become a frog is to live loyally each moment as a tadpole.

100:1.5 (1094.7) The soil essential for religious growth presupposes a progressive life of self-re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natural propensities, the exercise of curiosity and the enjoyment of reasonable adventure, the experiencing of feelings of satisfaction, the functioning of the fear stimulus of attention and awareness, the wonder-lure, and a normal consciousness of smallness, humility. Growth is also predicated on the discovery of selfhood accompanied by self-criticism — conscience, for conscience is really the criticism of oneself by one's own value-habits, personal ideals.

100:1.6 (1095.1) Religious experience is markedly influenced by physical health, inherited temperament, and social environment. But these temporal conditions do not inhibit inner spiritual progress by a soul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re are present in all normal mortals certain innate drives toward growth and self-realization which function if they are not specifically inhibited. The certain technique of fostering this constitutive endowment of the potential of spiritual growth is to maintain an attitude of wholehearted devotion to supreme values.

100:1.7 (1095.2) Religion cannot be bestowed, received, loaned, learned, or lost. It is a personal

최종 가치를 더욱 탐구하는 데 비례해서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성장은, 의미가 누적되고 가치기준이 계속 확장하면서 높아진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나 숭고함 자체는, 항상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교적 습관은, 질서 있는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 누구든지, 영적 자극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일종의 영적 조건반사를 일으키도록, 종교적 성향을 개발할 수 있다. 종교적 성장을 도와주는 습관에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세련된 감수성,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삶 인식, 시공우주의 의미에 대한 깊은 명상, 경건한 문제 해결, 자신의 영적 삶을 다른 동료들과 나눔, 이기심을 회피함, 신성한 자비를 이용하지 않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기 등이 있다. 종교적 성장의 요소는 의도적일지 모르지만, 성장 자체는 반드시 무의식적{無意識的}이다.

그렇지만, 종교적 성장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은, 그 성장이 인간 지능의 잠재의식 영역으로 가정되는 곳에서 작용하는 활동임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사 정신의 초의식 수준에서 이뤄지는 창조적 활동임을 뜻한다. 의식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성장하는 현실을 깨닫는 체험은, 초월의식 기능이 실존한다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다.

2. 영적 성장

영적 발전은, 첫째로, 참된 영적 권세와 생생한 영적 관계를 유지함에, 둘째는, 영적 열매를 계속 맺음에: 즉 자신이 영적 은인{恩人}으로부터 받은 것을 동료들에게 베푸는 데 달려있다. 영적 진보는, 완전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자아_의식,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영적으로 부족함을 지적으로 깨달음에 달려있다.

영적 성장은, 처음에 필요를 각성하고, 다음에는 의미를 식별하고, 그리고 나서 가치기준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증거는, 사랑으로 인해 자극받고, 이타적 섬김으로 활성화되고, 신성{神性}에 속하는 완전한 이상{理想}을 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 지배되는,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체험 전체가 종교의 실체이며, 단순한 신학적 믿음과 대조된다.

종교는, 우주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하는, 개화되고 현명한 기법이 되는 체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영화롭게 된 그런 종교는, 인간 인격의 3가지 수준, 즉: 지적 수준, 모론시아 수준, 및 영적 수준에서; 정신에 대해, 진화하는 혼 속에서, 그리고 내주{內住}하는 영과 함께, 작용할 수 있다.

experience which grows proportionally to the growing quest for final values. Cosmic growth thus attends on the accumulation of meanings and the ever-expanding elevation of values. But nobility itself is always an unconscious growth.

100:1.8 (1095.3) Religious habits of thinking and acting are contributory to the economy of spiritual growth. One can develop religious predispositions toward favorable reaction to spiritual stimuli, a sort of conditioned spiritual reflex. Habits which favor religious growth embrace cultivated sensitivity to divine values, recognition of religious living in others, reflective meditation on cosmic meanings, worshipful problem solving, sharing one's spiritual life with one's fellows, avoidance of selfishness, refusal to presume on divine mercy, living as in the presence of God. The factors of religious growth may be intentional, but the growth itself is unvaryingly unconscious.

100:1.9 (1095.4) The unconscious nature of religious growth does not, however, signify that it is an activity functioning in the supposed subconscious realms of human intellect; rather does it signify creative activities in the superconscious levels of mortal mind. The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unconscious religious growth is the one positive proof of the functional existence of the superconsciousness.

2. SPIRITUAL GROWTH

100:2.1 (1095.5) Spiritual development depends, first, on the maintenance of a living spiritual connection with true spiritual forces and, second, on the continuous bearing of spiritual fruit: yielding the ministry to one's fellows of that which has been received from one's spiritual benefactors. Spiritual progress is predicated on intellectual recognition of spiritual poverty coupled with the self-consciousness of perfection-hunger, the desire to know God and be like him, the wholehearted purpos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00:2.2 (1095.6) Spiritual growth is first an awakening to needs, next a discernment of meanings, and then a discovery of values. The evidence of true spiritual development consists in the exhibition of a human personality motivated by love, activated by unselfish ministry, and dominated by the wholehearted worship of the perfection ideals of divinity. And this entire experience constitutes the reality of religion as contrasted with mere theological beliefs.

100:2.3 (1095.7) Religion can progress to that level of experience whereon it becomes an enlightened and wise technique of spiritual reaction to the universe. Such a glorified religion can function on three levels of human personality: the intellectual,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upon the mind, in

영성(靈性)은 곧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친근한지, 그리고 그의 동료 존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재는 척도가 된다. 영성은,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 하고, 의미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보며, 가치기준에서 선함을 발견하는 역량을 증진시킨다. 영적 발달은, 발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며, 사랑의 이기적 특성을 제거하는 만큼 즉시 이뤄진다.

실제 영적 상태는, **신격**에 도달한 정도, 즉 **조율사**와 동조(同調)된 정도와 같다. 궁극의 영성 성취는, 실체가 최고점에 도달함, 즉 **하나님**처럼 되는 최고점과 일치한다. 영생(永生)이란, 무한한 가치기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노력할만한 가치를 갖는 유일한 실체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필사적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적 애정을 만족시킬 권리가 있으며; 인간관계와 현세의 제도에 충성함으로써 유익을 얻지만, 이런 것들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극복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얻고 완결성취자로서 봉사하는,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불멸(不滅)의 인격을 그 위에 건축하기 위한 영원한 기초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심오한 확신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들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현세의 안전은 무너지기 쉽지만, 영적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역경, 이기심, 잔인함, 증오, 원한, 및 시기심의 큰 물결이 필사자의 혼을 휩쓸 때, 너희는 하나의 내적 요새, 즉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영의 성곽이 존재한다는 확신 속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에게 자신의 혼을 완전히 맡기는 모든 인간에게 확실히 적용된다.

그런 영적 달성이 이뤄지고 나면, 점차적인 성장으로 확립되든지, 또는 특정한 위기로 인해 확립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가치 기준의 발달은 물론, 인격의 새로운 적응이 일어난다. 영으로 태어난 그런 개인은 확실한 동기를 삶에 다시 부여받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가장 열망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태연히 기다릴 수 있으며; 그런 큰 재앙이 단지, 새롭고 더 웅대한 수준의 우주 달성이란 더 고상하고 영속적인 실체를 높여주기에 앞서, 사람이 현세에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방향을 수정하는 격변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안다.

3. 최상의 가치에 관한 여러 개념

종교는, 정적(靜的)이고 행복 넘치는 정신의

the evolving soul, and with the indwelling spirit.

100:2.4 (1096.1) Spirituality becomes at once the indicator of one's nearness to God and the measure of one's usefulness to fellow beings. Spirituality enhances the ability to discover beauty in things, recognize truth in meanings, and discover goodness in values. Spiritual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capacity therefor and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limination of the selfish qualities of love.

100:2.5 (1096.2) Actual spiritual status is the measure of Deity attainment, Adjuster attunement. The achievement of finality of spirituality is equivalent to the attainment of the maximum of reality, the maximum of Godlikeness. Eternal life is the endless quest for infinite values.

100:2.6 (1096.3) The goal of human self-realization should be spiritual, not material. The only realities worth striving for are divine, spiritual, and eternal. Mortal man is entitled to the enjoyment of physical pleasures and to the satisfaction of human affections; he is benefited by loyalty to human associations and temporal institutions; but these are not the eternal foundations upon which to build the immortal personality which must transcend space, vanquish time, and achieve the eternal destiny of divine perfection and finaliter service.

100:2.7 (1096.4) Jesus portrayed the profound surety of the God-knowing mortal when he said: “To a God-knowing kingdom believer, what does it matter if all things earthly crash?” Temporal securities are vulnerable, but spiritual sureties are impregnable. When the flood tides of human adversity, selfishness, cruelty, hate, malice, and jealousy beat about the mortal soul, you may rest in the assurance that there is one inner bastion, the citadel of the spirit, which is absolutely unassailable; at least this is true of every human being who has dedicated the keeping of his soul to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eternal God.

100:2.8 (1096.5) After such spiritual attainment, whether secured by gradual growth or specific crisis, there occurs a new orientation of personali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new standard of values. Such spirit-born individuals are so remotivated in life that they can calmly stand by while their fondest ambitions perish and their keenest hopes crash; they positively know that such catastrophes are but the redirecting cataclysms which wreck one's temporal creations preliminary to the rearing of the more noble and enduring realities of a new and more sublime level of universe attainment.

3. CONCEPTS OF SUPREME VALUE

100:3.1 (1096.6) Religion is not a technique for attaining a static and blissful peace of mind; it is an

평안을 얻는 기법이 아니며; 역동적 봉사를 위해서 혼을 체계화하는 추진력이다.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충성된 봉사에 자아성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종교는, 최고 목표 달성, 즉 영원한 보상에 필수적인 어떤 값이든지 지불한다. 종교적 충성심에는 완벽한 헌신이 있는데, 이것은 최고로 숭고하다. 이런 충성심은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영적 진취성이 있다.

종교인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실체에 접근하고 신성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으며; 도덕적 가치기준은 소망의 실현이나 감정적 좌절감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가치기준을 고려할 때, 너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를 갖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너희는 유쾌하게 활동하는 것과, 늘 점진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인간 체험 수준에서 유쾌한 활동을 의미 있게 통합하고 더 낮게 실현하는 것,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의미는, 체험이 가치에 덧붙이는 무엇이며; 가치기준을 식별해서 의식하는 것이다. 혼자서만 누리는 순전히 이기적인 만족은, 의미를 실질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상대적 악{惡}에 가까운, 무의미한 향락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실체들이 의미 있고 심적으로 연결될 때, 정신이 그런 관계들을 인식하고 식별할 때, 가치기준은 체험에 의거한다.

가치기준은 결코 정적{靜的}일 수 없으며; 실체는, 변화, 즉 성장을 의미한다. 성장이 없는 변화, 즉 의미를 확장함과 가치를 높임이 없는 변화는 무가치하다--곧 잠재적 악이다. 어떤 체험이든지, 시공우주에 적응이 잘 되었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가치는 관념적 환상이 아니며; 실체하지만, 반드시 관계라는 실상에 의존한다. 가치기준은 항상 실체적인 동시에 잠재적이다--곧 과거의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무엇, 그리고 앞으로 있을 무엇이다.

실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결합은, 성장, 즉 가치가 체험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항상 의미심장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비교적 무가치하다.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것은, 가치기준이 성장함, 의미가 향상됨, 그리고 이 두 체험이 시공우주에서 서로 관계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은, **하나님**을 의식함과 동등하다. 그런 필사자는, 자연을 초월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인간을 초월하고 있으며; 불멸의 혼{魂}이 진화하고 있다.

사람은 성장을 일으킬 수 없지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육체의 성장이거나 지적 성장이거나 영적 성장이거나 상관없이, 성장은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랑은 이렇게 성장하며;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구매될 수 없으며;

impulse for organizing the soul for dynamic service. It is the enlistment of the totality of selfhood in the loyal service of loving God and serving man. Religion pays any price essential to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goal, the eternal prize. There is a consecrated completeness in religious loyalty which is superbly sublime. And these loyalties are socially effective and spiritually progressive.

100:3.2 (1096.7) To the religionist the word God becomes a symbol signifying the approach to supreme reality and the recognition of divine value. Human likes and dislikes do not determine good and evil; moral values do not grow out of wish fulfillment or emotional frustration.

100:3.3 (1096.8) In the contemplation of values you must distinguish between that which is value and that which has value. You must recognize the relation between pleasurable activities and their meaningful integration and enhanced realization on ever progressively higher and higher levels of human experience.

100:3.4 (1097.1) Meaning is something which experience adds to value; it is the appreciative consciousness of values. An isolated and purely selfish pleasure may connote a virtual devaluation of meanings, a meaningless enjoyment bordering on relative evil. Values are experiential when realities are meaningful and mentally associated, when such relationships are recognized and appreciated by mind.

100:3.5 (1097.2) Values can never be static; reality signifies change, growth. Change without growth, expansion of meaning and exaltation of value, is valueless — is potential evil. The greater the quality of cosmic adaptation, the more of meaning any experience possesses. Values are not conceptual illusions; they are real, but always they depend on the fact of relationships. Values are always both actual and potential — not what was, but what is and is to be.

100:3.6 (1097.3) The association of actuals and potentials equals growth,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values. But growth is not mere progress. Progress is always meaningful, but it is relatively valueless without growth. The supreme value of human life consists in growth of values, progress in meanings, and realization of the cosmic interrelatedness of both of these experiences. And such an experience is the equivalent of God-consciousness. Such a mortal, while not supernatural, is truly becoming superhuman; an immortal soul is evolving.

100:3.7 (1097.4) Man cannot cause growth, but he can supply favorable conditions. Growth is always unconscious, be it physical, intellectual, or spiritual. Love thus grows; it cannot be created, manufactured, or purchased; it must grow.

사랑은 자라야 한다. 진화는 성장을 일으키는 시공우주 기법이다. 사회의 성장은 법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도덕의 성장은 경영을 개선해서 이룰 수 없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 수 있지만, 기계의 참된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문화와 개인의 평가로 도출해야 한다. 사람이 성장에 유일하게 기여하는 것은, 자기 인격의 온 힘을--곧 살아있는 신앙을--동원하는 것이다.

4. 성장의 문제

종교 생활은 헌신적인 삶이며, 헌신적인 삶은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창조적 생활이다. 새로운 종교 통찰력은 갈등에서 생겨나며, 갈등은 예전에 열등하게 반응하던 경향 대신, 새롭고 더 낮게 반응하는 습관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새로운 의미는 오직 갈등 한가운데서만 일어나며; 갈등은, 우수한 의미에 내포된 더 높은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속된다.

종교적 혼란은 피할 수 없으며; 심령의 갈등과 영적 동요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철학적 생활 기준을 체계화 할 때, 정신의 철학 영역에 상당한 소란이 생긴다. 투쟁 없이는, 위대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고결한 것들을 위한 충성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시공우주 통찰력이 증진되는 데는 수고가 수반된다. 그리고 인간 지능은, 이 세상에 실존하는 비영적{非靈的} 에너지를 먹고 살다가, 젖을 때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저항한다. 나태한 동물적 정신은, 시공우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 하는 데 필요한 수고를 몹시 싫어한다.

그러나 종교 생활에서 중대한 문제는, **사랑**이 지배함으로 그 인격체의 혼의 능력들을 통합하는 과제에 있다. 건강, 심적{心的} 능률, 및 행복은, 육체 체계, 정신 체계, 그리고 영 체계가 통합될 때 발생한다. 사람이 건강과 건전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만, 행복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깨닫는 바가 거의 없다. 가장 고상한 행복은, 영적 진보와 뗄 수 없을 만큼 연결돼 있다. 영적 성장은, 오래 가는 기쁨, 즉 너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온다.

육체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감각이 물체의 실존을 밝혀주며; 정신은 의미를 가진 실체를 발견하지만; 영적 체험은 생애의 참된 가치관을 각 개인에게 드러낸다. 인간의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함으로 달성된다. 너희가 동료들 사랑한다면, 그들의 가치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예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한 것은, 사람에게 그런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동역자들의 동기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너를 짜증나게 한다면, 분노의 느낌을 일으킨다면, 너는 그의 관점, 즉 그런 불쾌한 행위의 이유를 분별하기 위해 동정심을 갖고 노력해야

Evolution is a cosmic technique of growth. Social growth cannot be secured by legislation, and moral growth is not had by improved administration. Man may manufacture a machine, but its real value must be derived from human culture and personal appreciation. Man's sole contribution to growth is the mobilization of the total powers of his personality — living faith.

4. PROBLEMS OF GROWTH

100:4.1 (1097.5) Religious living is devoted living, and devoted living is creative living, original and spontaneous. New religious insights arise out of conflicts which initiate the choosing of new and better reaction habits in the place of older and inferior reaction patterns. New meanings only emerge amid conflict; and conflict persists only in the face of refusal to espouse the higher values connoted in superior meanings.

100:4.2 (1097.6) Religious perplexities are inevitable; there can be no growth without psychic conflict and spiritual agitation. The organization of a philosophic standard of living entails considerable commotion in the philosophic realms of the mind. Loyalties are not exercised in behalf of the great, the good, the true, and the noble without a struggle. Effort is attendant upon clarification of spiritual vision and enhancement of cosmic insight. And the human intellect protests against being weaned from subsisting upon the nonspiritual energies of temporal existence. The slothful animal mind rebels at the effort required to wrestle with cosmic problem solving.

100:4.3 (1097.7) But the great problem of religious living consists in the task of unifying the soul powers of the personality by the dominance of LOVE. Health, mental efficiency, and happiness arise from the unification of physical systems, mind systems, and spirit systems. Of health and sanity man understands much, but of happiness he has truly realized very little. The highest happiness is indissolubly linked with spiritual progress. Spiritual growth yields lasting joy, peace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100:4.4 (1098.1) In physical life the senses tell of the existence of things; mind discovers the reality of meanings; but the spiritual experience reveals to the individual the true values of life. These high levels of human living are attained in the supreme love of God and in the unselfish love of man. If you love your fellow men, you must have discovered their values. Jesus loved men so much because he placed such a high value upon them. You can best discover values in your associates by discovering their motivation. If someone irritates you, causes feelings of resentment, you should sympathetically seek to discern his viewpoint, his reasons for such objectionable conduct. If once

한다. 일단 네 이웃을 이해하면, 너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 아량이 자라서 우정이 되고, 무르익으면 사랑이 될 것이다.

동굴에서 살던 시대의 원시적인 너희 조상 가운데 하나의 모습--곧 키가 작고, 흉하며, 불결하고, 고함치는 인간 괴물이 다리를 벌리고, 막대기를 들고, 정면을 사납게 보며 증오심과 악의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라. 그런 모습은 사람의 신성한 존엄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그림을 확대시켜보자. 힘찬 이 인간 앞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그 사람의 뒤에는 한 여자와 두 아이가 있다. 너희는, 그런 모습이 인간 종족에서 훌륭하고 고귀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곧 알겠지만, 그 사람은 두 그림 속에서 같은 주인공이다. 너희는 오직 두 번째 그림에서만 넓어진 시야의 덕을 보고 있다. 너희는 그 속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동기를 헤아린다. 너희가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칭찬 받을 만한 것이 된다. 너희가 동료의 동기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질까. 동료를 알 수만 있다면, 너희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단순히 의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네 동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네 이웃의 동기와 감상을 속속들이 이해함으로써만 생겨난다. 네가 매일 한 사람씩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가, 매일 또는 매 주, 동료 가운데 한 사람씩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네 역량의 한계라면, 너는 분명히 사회화 돼갈 것이고, 네 인격을 진정으로 영성화 시켜갈 것이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으며, 인간의 현신이 지성적이고 현명할 때에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 매력 있다. 그러나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만이 정말로 전염된다. 각 사람이 역동적 애정의 중심점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 친절한 바이러스는 곧 인류의 감상적 감정 흐름에 널리 침투해서, 모든 문명 세계가 사랑으로 휩싸이고, 사람의 형제관계가 실현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5. 회심과 신비주의

세상은 길 잃은 혼들로 가득한데, 그들은 신학적 감각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지시면에서 길을 잃었고, 좌절감을 느끼는 철학 시대의 이론과 종파들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한다. 종교 권세에 복종하는 대신, 어떻게 삶의 철학을 세우는지를 배운 사람이 너무 적다. (강바닥은 강물이 아니지만, 성장의 경로인 사회화된 종교 상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성장의 진보는, 침체로부터 갈등을 거쳐서 조화로, 불확실성으로부터 확신하는 신앙으로, 혼돈 된 시공우주 의식으로부터 인격 통합으

you understand your neighbor, you will become tolerant, and this tolerance will grow into friendship and ripen into love.

100:4.5 (1098.2) In the mind's eye conjure up a picture of one of your primitive ancestors of cave-dwelling times — a short, misshapen, filthy, snarling hulk of a man standing, legs spread, club upraised, breathing hate and animosity as he looks fiercely just ahead. Such a picture hardly depicts the divine dignity of man. But allow us to enlarge the picture. In front of this animated human crouches a saber-toothed tiger. Behind him, a woman and two children. Immediately you recognize that such a picture stands for the beginnings of much that is fine and noble in the human race, but the man is the same in both pictures. Only, in the second sketch you are favored with a widened horizon. You therein discern the motivation of this evolving mortal. His attitude becomes praiseworthy because you understand him. If you could only fathom the motives of your associates, how much better you would understand them. If you could only know your fellows, you would eventually fall in love with them.

100:4.6 (1098.3) You cannot truly love your fellows by a mere act of the will. Love is only born of thoroughgoing understanding of your neighbor's motives and sentiments. It is not so important to love all men today as it is that each day you learn to love one more human being. If each day or each week you achieve an understanding of one more of your fellows, and if this is the limit of your ability, then you are certainly socializing and truly spiritualizing your personality. Love is infectious, and when human devotion is intelligent and wise, love is more catching than hate. But only genuine and unselfish love is truly contagious. If each mortal could only become a focus of dynamic affection, this benign virus of love would soon pervade the sentimental emotion-stream of humanity to such an extent that all civilization would be encompassed by love, and that would be th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5. CONVERSION AND MYSTICISM

100:5.1 (1098.4) The world is filled with lost souls, not lost in the theologic sense but lost in the directional meaning, wandering about in confusion among the isms and cults of a frustrated philosophic era. Too few have learned how to install a philosophy of living in the place of religious authority. (The symbols of socialized religion are not to be despised as channels of growth, albeit the river bed is not the river.)

100:5.2 (1098.5) The progression of religious growth leads from stagnation through conflict to co-ordination, from insecurity to undoubting faith, from confusion of cosmic consciousness to unification

로, 현세의 목표로부터 영원한 목표로, 두려움에 속박된 상태에서부터 신성한 아들신분의 해방으로 이끈다.

최고의 이상{理想}에 대한 충성심의 고백--**곧 하나님을** 의식함을, 심령적, 감정적, 및 영적으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점진적인 성장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위기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에서 때때로 체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 중대한 날, 바로 그런 갑작스럽고 장엄한 회심을 체험했다. **가우타마 싯다르타**는, 홀로 앉아서 궁극적 진리의 신비를 꿰뚫어보고자 하던 그 밤에, 비슷한 체험을 했다. 많은 다른 사람도 유사한 체험을 했으며, 갑작스런 회심 없이 영적 진보를 이룩한 참된 신자도 많이 있었다.

소위 종교적 회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극적 현상 대부분은 본질상 완전히 심리적인 것이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기원되는 체험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 달성을 향해서 심령적으로 상승하여 도달하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절대로 온전히 정신을 기울일 때, 즉 신성한 개념에 인간이 충성하는 동기가 완벽할 때에는, 믿는 그 필사자의 초의식적 정신이 갖는, 집중되고 정화된 목적에 동조하기 위해, 내주하는 영이 갑자기 내려와서_잡아채는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순전히 심리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요소들 속에서 회심을 성립시키는 것은, 바로 지적 현상과 영적 현상을 통합하는 그런 체험이다.

그러나 감정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회심이며; 느낌뿐 아니라 신앙도 가져야 한다. 그런 심령 활성화가 불완전한 만큼, 그리고 그런 인간적_충성심의 동기부여가 미완성인 한, 회심 체험은 그 정도까지, 지적, 감정적, 및 영적 실체의 혼합이 될 것이다.

다른 면에서는 통합된 지적 생활에 실제로 작용하는 전제{前提}로서, 이론적 잠재의식 정신을 인정하고 싶다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영역인, 더 높은 지적 활동이 있는 초의식 수준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 초의식 수준은, 내주하는 영 실체인 **사도 조을사**와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지대다. 이런 모든 심령적 관찰에 있는 큰 위험성은, 색다른 꿈을 포함해서 환상과 소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이, 인간 정신에게 주는 신성한 전언{傳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시절에, 신성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병적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다.

회심을 추구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사도 조을사**와 접촉할 수 있는 모론시아 지대에 더

of personality, from the temporal objective to the eternal, from the bondage of fear to the liberty of divine sonship.

100:5.3 (1099.1)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rofessions of loyalty to the supreme ideals — the psychic, emotional, and spiritual awareness of God-consciousness — may be a natural and gradual growth or may sometimes be experienced at certain junctures, as in a crisis. The Apostle Paul experienced just such a sudden and spectacular conversion that eventful day on the Damascus road. Gautama Siddhartha had a similar experience the night he sat alone and sought to penetrate the mystery of final truth. Many others have had like experiences, and many true believers have progressed in the spirit without sudden conversion.

100:5.4 (1099.2) Most of the spectacular phenomena associated with so-called religious conversions are entirely psychologic in nature, but now and then there do occur experiences which are also spiritual in origin. When the mental mobilization is absolutely total on any level of the psychic upreach toward spirit attainment, when there exists perfection of the human motivation of loyalties to the divine idea, then there very often occurs a sudden down-grasp of the indwelling spirit to synchronize with the concentrated and consecrated purpose of the superconscious mind of the believing mortal. And it is such experiences of unified intellectual and spiritual phenomena that constitute the conversion which consists in factors over and above purely psychologic involvement.

100:5.5 (1099.3) But emotion alone is a false conversion; one must have faith as well as feeling. To the extent that such psychic mobilization is partial, and in so far as such human-loyalty motivation is incomplete, to that extent will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be a blended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reality.

100:5.6 (1099.4) If one is disposed to recognize a theoretical subconscious mind as a practical working hypothesis in the otherwise unified intellectual life, then, to be consistent, one should postulate a similar and corresponding realm of ascending intellectual activity as the superconscious level, the zone of immediate contact with the indwelling spirit entity, the Thought Adjuster. The great danger in all these psychic speculations is that visions and other so-called mystic experiences, along with extraordinary dreams, may be regarded as divine communications to the human mind. In times past, divine beings have revealed themselves to certain God-knowing persons, not because of their mystic trances or morbid visions, but in spite of all these phenomena.

100:5.7 (1099.5) In contrast with conversion-seeking, the better approach to the morontia zones of

잘 접근하는 방법은, 생생한 신앙과 진지한 경배, 즉 전심으로 하는 이타적 기도를 통하는 것이다. 인간 정신의 무의식 수준에서 급격히 솟아오르는 기억들 가운데 허다한 것이, 신의 계시와 영의 인도라고 잘못 생각돼 왔다.

종교적 백일몽(白日夢)의 습관적 실행과 관련된 큰 위험성이 있으며; 신비주의는 때로 참된 영적 교류의 수단이었지만, 현실을 도피하는 기법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바쁜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지 모르지만, 인격이 긴 기간 고립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망상적 의식(意識)의 무아 지경 상태가 종교 체험으로 장려해서는 안 된다.

신비스런 상태의 특질은, 비교적 수동적인 지능에 작용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선명한 격리지 대들과 함께 의식이 산만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초의식인 영적 접촉 지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향해서 의식을 끌어내린다. 많은 신비주의자가 자신의 정신적 분리를 정신 정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까지 몰아갔다.

영적 명상 가운데 좀 더 건전한 태도는, 사려 깊은 경배와 감사드리는 기도에서 발견돼야 한다. 육체를 입은 **예수**의 일생 후반에 일어났던 것처럼, 자신의 **사고 조율사**와 직접 교류하는 것을, 이른바 이 신비 체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비스런 교류의 개시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그런 심령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비 상태는: 육체의 피로, 금식, 심령적 분리, 깊은 심미적 체험, 강렬한 성욕,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격렬한 춤 등으로 촉진된다. 그런 예비적 준비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들 대부분은 잠재의식 정신에서 기원된다.

신비 현상이 일어날 조건이 아무리 호의적이더라도, **나사렛 예수**께서는 **낙원 아버지**와 교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잠재의식의 망상 또는 초의식의 환상을 겪지 않았다.

6. 종교 생활의 징후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방법이 뚜렷이 다를지 모르지만, 동기는 매우 비슷하다. 종교는 생명의 특정한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삶의 방식이다. 참된 종교는 종교인이 자신에게,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최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

possible contact with the Thought Adjuster would be through living faith and sincere worship, wholehearted and unselfish prayer. Altogether too much of the uprush of the memories of the unconscious levels of the human mind has been mistaken for divine revelations and spirit leadings.

100:5.8 (1099.6) There is great danger associated with the habitual practice of religious daydreaming; mysticism may become a technique of reality avoidance, albeit it has sometimes been a means of genuine spiritual communion. Short seasons of retreat from the busy scenes of life may not be seriously dangerous, but prolonged isolation of personality is most undesirable.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trancelike state of visionary consciousness be cultivated as a religious experience.

100:5.9 (1099.7)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stical state are diffusion of consciousness with vivid islands of focal attention operating on a comparatively passive intellect. All of this gravitates consciousness toward the subconscious rather than in the direction of the zone of spiritual contact, the superconscious. Many mystics have carried their mental dissociation to the level of abnormal mental manifestations.

100:5.10 (1100.1) The more healthful attitude of spiritual meditation is to be found in reflective worship and in the prayer of thanksgiving. The direct communion with one's Thought Adjuster, such as occurred in the later years of Jesus' life in the fles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se so-called mystical experiences. The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initiation of mystic communion are indicative of the danger of such psychic states. The mystic status is favored by such things as: physical fatigue, fasting, psychic dissociation, profound aesthetic experiences, vivid sex impulses, fear, anxiety, rage, and wild dancing. Much of the material arising as a result of such preliminary preparation has its origin in the subconscious mind.

100:5.11 (1100.2) However favorable may have been the conditions for mystic phenomena, i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that Jesus of Nazareth never resorted to such methods for communion with the Paradise Father. Jesus had no subconscious delusions or superconscious illusions.

6. MARKS OF RELIGIOUS LIVING

100:6.1 (1100.3) Evolutionary religions and revelatory religions may differ markedly in method, but in motive there is great similarity. Religion is not a specific function of life; rather is it a mode of living. True religion is a wholehearted devotion to some reality which the religionist deems to be of

고 모든 종교의 뚜렷한 특질은:최상의 가치기준에 의심 없이 충성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최상의 가치에 대한 이런 종교적 헌신은, 신앙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비종교인들이 지지하는 운동에 열심히 충성을 바치는 데서 나타난다.

종교인이 용납하는 최고의 가치는, 저속하거나 심지어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종교적이다. 종교는, 최상의 것으로 유지되는 가치가 정말로 참된 영적 가치를 갖는 시공우주 실체인,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참되다.

인간이 종교적 충동에 반응하는 징후는 고귀하고 웅장한 특성을 띤다. 진지한 종교인은, 우주 시민임을 의식하고, 초인적 능력의 근원과 접촉함을 자각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뛰어나고 고상한 교제에 소속된다는 확신으로 감격하고 활력을 얻는다. 가장 높은 우주 목표--곧 최상의 목표--를 탐색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자아의 가치를 더욱 의식{意識}하게 된다.

자아는, 전부 포함하는 동기로 인한 흥미로운 충동에 굴복했으며, 그 동기는 강화된 자아-훈련을 강요하고, 감정의 갈등을 줄여주고, 필사자의 생애를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병적 인식은, 가장 높은 우주 및 초우주 목표를 달성하려는 도덕적 결정 및 영적 열망과 관련해서, 필사자의 결점을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초인적 이상{理想}을 달성하려는 열정적인 이 노력의 특징은 반드시, 인내, 관용, 꾀꾀함, 및 아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살아있는 사랑, 즉 봉사하는 인생이다. 종교인이 순전히 현세적이고 진부한 많은 것들로부터 초연함은 결코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지 않으며, 그 초연함이 유머 감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 실존으로부터 아무 것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인생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며;새로운 유형의 열정, 열심, 및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십자군의 기풍까지도 불러일으킬지 모르며, 이것은 영적 통찰력으로, 그리고 인간이 충성하는 평범한 사회적 책무에 성실히 헌신함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극도로 위험하다.

종교 생활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동적이고 숭고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모든 인간을 이해시키는, 즉 모든 의심과 혼란이 없음을 나타내는 시공우주의 균형이다. 그런 수준의 영적 안정성이 실망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그런 종교인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현재에 있는 것도, 장차 도래할 것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나는 확신

supreme value to himself and for all mankind. And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all religions are: unquestioning loyalty and wholehearted devotion to supreme values. This religious devotion to supreme values is shown in the relation of the supposedly irreligious mother to her child and in the fervent loyalty of nonreligionists to an espoused cause.

100:6.2 (1100.4) The accepted supreme value of the religionist may be base or even false, but it is nevertheless religious. A religion is genuine to just the extent that the value which is held to be supreme is truly a cosmic reality of genuine spiritual worth.

100:6.3 (1100.5) The marks of human response to the religious impulse embrace the qualities of nobility and grandeur. The sincere religionist is conscious of universe citizenship and is aware of making contact with sources of superhuman power. He is thrilled and energized with the assurance of belonging to a superior and ennobled fellowship of the sons of God. The consciousness of self-worth has become augmented by the stimulus of the quest for the highest universe objectives — supreme goals.

100:6.4 (1100.6) The self has surrendered to the intriguing drive of an all-encompassing motivation which imposes heightened self-discipline, lessens emotional conflict, and makes mortal life truly worth living. The morbid recognition of human limitations is changed to the natural consciousness of mortal shortcomings, associated with moral determination and spiritual aspiration to attain the highest universe and superuniverse goals. And this intense striving for the attainment of supermortal ideals is alway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patience, forbearance, fortitude, and tolerance.

100:6.5 (1100.7) But true religion is a living love, a life of service. The religionist's detachment from much that is purely temporal and trivial never leads to social isolation, and it should not destroy the sense of humor. Genuine religion takes nothing away from human existence, but it does add new meanings to all of life; it generates new types of enthusiasm, zeal, and courage. It may even engender the spirit of the crusader, which is more than dangerous if not controlled by spiritual insight and loyal devotion to the commonplace social obligations of human loyalties.

100:6.6 (1101.1) One of the most amazing earmarks of religious living is that dynamic and sublime peace, that peace which 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that cosmic poise which betokens the absence of all doubt and turmoil. Such levels of spiritual stability are immune to disappointment. Such religionists are like the Apostle Paul, who said: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다.

승리하는 영광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보호 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은 **지존자**의 실재를 파악한, 그리고 **궁극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의식에 내재한다.

심지어 진화 종교도 충성심과 숭고함에서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그 종교가 참된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참된 뿐만 아니라 **지극히 훌륭하다**. 영적 선견지명이 증대됨으로 생기는 새로운 충성심은, 새로운 수준의 사랑과 헌신, 즉 봉사와 교제를 창출하며; 증진시킨 이 모든 사회적 전망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을 더욱 크게 의식하게 한다.

진화된 종교와 계시된 종교 사이의 독특한 차이점은 새로운 특성의 신성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순전히 체험으로 얻은 인간의 지혜에 덧붙여진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들 안에서 그리고 그 종교들과 함께 얻은 체험은, 더 한층 증여하는 신성한 지혜와 시공우주 통찰력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7. 종교 생활의 절정

유란시아의 보통 필사자는, **나사렛 예수**께서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에 획득한, 그 완벽한 성품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겠지만, 필사 신자는 누구나, **예수**의 인간성이 완전하게 된 계통을 따라서, 강력하고 통합된 인간성을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주님**의 인격자의 독특한 특색은, 그 인격자의 완전성보다는 대칭성, 즉 그 인격자의 절묘하고 균형 잡힌 통합이었다. **예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어떤 사람의 예인데, 그는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말했다.

예수의 끊임없는 친절이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켰지만, 신념이 굳은 그의 강력한 성품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정말로 진실했으며; 그의 안에는 위선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허식(虛飾)이 없었으며; 항상 매우 참신한 진실됨이 있었다. 그는 겉치레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었으며, 결코 체면 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진리를 실천했다. 그가 바로 진리였다. 구원하는 진리를 그의 세대에게 성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때로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진리에 충신했다.

그러나 **주님**은 무척 이성적이었고, 무척 사귀기 쉬운 분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매우 실용적이었으며, 한편 그의 모든 계획의 특징은 정화(淨化)된 그런 상식이였다. 그는, 기형적이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100:6.7 (1101.2) There is a sense of security, associ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riumphing glory, resident in the consciousness of the religionist who has grasped the reality of the Supreme, and who pursues the goal of the Ultimate.

100:6.8 (1101.3) Even evolutionary religion is all of this in loyalty and grandeur because it is a genuine experience. But revelatory religion is *excellent* as well as genuine. The new loyalties of enlarged spiritual vision create new levels of love and devotion, of service and fellowship; and all this enhanced social outlook produces an enlarged consciousnes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100:6.9 (1101.4)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evolved and revealed religion is a new quality of divine wisdom which is added to purely experiential human wisdom. But it is experience in and with the human religions that develops the capacity for subsequent reception of increased bestowals of divine wisdom and cosmic insight.

7. THE ACME OF RELIGIOUS LIVING

100:7.1 (1101.5) Although the average mortal of Urantia cannot hope to attain the high perfection of character which Jesus of Nazareth acquired while sojourning in the flesh, it is altogether possible for every mortal believer to develop a strong and unified personality along the perfected lines of the Jesus personality. The unique feature of the Master's personality was not so much its perfection as its symmetry, its exquisite and balanced unification. The most effective presentation of Jesus consists in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one who said, as he gestured toward the Master standing before his accusers, “Behold the man!”

100:7.2 (1101.6) The unfailing kindness of Jesus touched the hearts of men, but his stalwart strength of character amazed his followers. He was truly sincere; there was nothing of the hypocrite in him. He was free from affectation; he was always so refreshingly genuine. He never stooped to pretense, and he never resorted to shamming. He lived the truth, even as he taught it. He was the truth. He was constrained to proclaim saving truth to his generation, even though such sincerity sometimes caused pain. He was unquestioningly loyal to all truth.

100:7.3 (1101.7) But the Master was so reasonable, so approachable. He was so practical in all his ministry, while all his plans were characterized by such sanctified common sense. He was so free

거나, 변덕스럽거나, 괴벽스런 모든 경향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그는 변덕스럽거나 별나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의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비범한 예의바름과 관련된 절묘한 분별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항상 매우 침착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적들도 그에게 진지한 존경심을 보였으며; 그가 나타나는 것을 무서워하기조차 했다. **예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성한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결코 광신을 보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결코 경솔하지 않았다.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언제나 실용적이었다. 인생의 실체를 솔직하게 대면했지만, 결코 침체되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으며; 신중하면서도 비열하지 않았다. 연민의 정이 깊었지만 감상적이지 않았으며; 독특했지만 괴벽스럽지 않았다. 경건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매우 침착했는데, 아주 완전하게 통합됐기 때문이다.

예수의 독창성은 억압되지 않았다. 그는 전통에 묶이거나 편협한 인습에 사로잡힘으로 방해받지 않았다. 확실한 자신감으로 말씀했고, 완전한 권세로 가르쳤다. 그러나 훌륭한 독창성이 있었어도, 그의 선조와 그 시대 사람들의 교훈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배를 경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두려움과 제물 대신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폭넓은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추종자들에게 간곡히 타일렀다. 그에게는 편협함이 없었다. 그의 동정적 심성은, 온 인류, 심지어 한 우주까지 포용했다. 그는 항상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다.

예수의 경우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숭고하게 신뢰했다. 어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아버지**를 신뢰했다. 그의 신앙은 완전했지만 오만한 적이 결코 없었다. **예수**께서는, 잔인한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복지에 관계가 없을지라도,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실망 당할 염려가 없었고 박해에 영향 받지 않았다. 그는 의견상 실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형제로서 사랑했고, 동시에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헤아렸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별나게 쾌활한 사람이었지만,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었다. 그가 늘 훈계한 말씀은,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확신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동적으로 인정이 많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from all freakish, erratic, and eccentric tendencies. He was never capricious, whimsical, or hysterical. In all his teaching and in everything he did there was always an exquisite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an extraordinary sense of propriety.

100:7.4 (1102.1) The Son of Man was always a well-poised personality. Even his enemies maintained a wholesome respect for him; they even feared his presence. Jesus was unafraid. He was surcharged with divine enthusiasm, but he never became fanatical. He was emotionally active but never flighty. He was imaginative but always practical. He frankly faced the realities of life, but he was never dull or prosaic. He was courageous but never reckless; prudent but never cowardly. He was sympathetic but not sentimental; unique but not eccentric. He was pious but not sanctimonious. And he was so well-poised because he was so perfectly unified.

100:7.5 (1102.2) Jesus' originality was unstifled. He was not bound by tradition or handicapped by enslavement to narrow conventionality. He spoke with undoubted confidence and taught with absolute authority. But his superb originality did not cause him to overlook the gems of truth in the teachings of his predecessors and contemporaries. And the most original of his teachings was the emphasis of love and mercy in the place of fear and sacrifice.

100:7.6 (1102.3) Jesus was very broad in his outlook.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peoples. He was free from all narrow-mindedness. His sympathetic heart embraced all mankind, even a universe. Always his invitation was, “Whosoever will, let him come.”

100:7.7 (1102.4) Of Jesus it was truly said, “He trusted God.” As a man among men he most sublimely trusted the Father in heaven. He trusted his Father as a little child trusts his earthly parent. His faith was perfect but never presumptuous. No matter how cruel nature might appear to be or how indifferent to man's welfare on earth, Jesus never faltered in his faith. He was immune to disappointment and impervious to persecution. He was untouched by apparent failure.

100:7.8 (1102.5) He loved men as brothers,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how they differed in innate endowments and acquired qualities. “He went about doing good.”

100:7.9 (1102.6) Jesus was an unusually cheerful person, but he was not a blind and unreasoning optimist. His constant word of exhortation was, “Be of good cheer.” He could maintain this confident attitude because of his unswerving trust in God and his unshakable confidence in man. He was always touchingly considerate of all men because he loved them and believed in them. Still

그는 신념에 항상 진실했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헌신하는 동안, 당당하게 견고했다.

주님은 항상 관대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기를 항상 즐거워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또한, 끝없이 모든 관용을 베풀면서도, 결코 낭비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그는 솔직했지만 항상 친절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숨김없었지만, 항상 친근했다.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 솔직한 내내, 그는 어김없이 **공평**했다.

예수께서는 가끔 인간적 슬픔의 잔을 진하게 마시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쾌활했다. 그는 실존하는 실체에 담대히 대면했고, 더욱이 천국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열정을 통제했으며; 열정이 그를 통제할 적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무제한 헌신했다. 이런 신성한 열정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형제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던 온 우주는, 그를 온전한 사람의 본보기로, 그리고 영적 삶의 고상한 표준에 헌신한 고귀한 인간 원형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의 통제된 열정은 전염성 있었으며; 동역자들은 그의 신성한 낙관주의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갈릴리의 이 사람은 슬픔에 잠긴 한 남자가 아니었으며; 기쁨이 넘치는 혼이었다. 그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항상 말씀했다. 그러나 의무가 요구할 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골짜기”를 기꺼이 용감하게 걸어갔다. 그는 유쾌했지만 동시에 겸손했다.

그의 용기는 그의 인내심에 못지않았다. 시기상조임에도 행동하라고 압력을 받았을 때, 그는 오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으며; 그의 침착성은 탁월했다. 그러나 종종 악에 분개했고, 죄를 참지 못했다. 땅에 있는 자녀들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항하도록, 강하게 감동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의 의분(義憤)은 결코 그 죄인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대단했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았다. 그의 표어는 “두려워 말라”였다. 그의 용감성은 고상했고 그의 용기는 종종 영웅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분별력과 연결됐고, 이성으로 통제됐다. 그것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용기였고, 무모하게 맹목적인 부주의함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용감했지만, 결코 주체넘지 않았다.

주님은 공경의 본보기였다. 젊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

he was always true to his convictions and magnificently firm in his devo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100:7.10 (1102.7) The Master was always generous. He never grew weary of saying,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Said he,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And yet, with all of his unbounded generosity, he was never wasteful or extravagant. He taught that you must believe to receive salvation. “For every one who seeks shall receive.”

100:7.11 (1102.8) He was candid, but always kind. Said he,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He was frank, but always friendly. He was outspoken in his love for the sinner and in his hatred for sin. But throughout all this amazing frankness he was unerringly fair.

100:7.12 (1102.9) Jesus was consistently cheerful, notwithstanding he sometimes drank deeply of the cup of human sorrow. He fearlessly faced the realities of existence, yet was he filled with enthusiasm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he controlled his enthusiasm; it never controlled him. He was unreservedly dedicated to “the Father's business.” This divine enthusiasm led his unspiritual brethren to think he was beside himself, but the onlooking universe appraised him as the model of sanity and the pattern of supreme mortal devotion to the high standards of spiritual living. And his controlled enthusiasm was contagious; his associates were constrained to share his divine optimism.

100:7.13 (1103.1) This man of Galilee was not a man of sorrows; he was a soul of gladness. Always was he saying,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But when duty required, he was willing to walk courageously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He was gladsome but at the same time humble.

100:7.14 (1103.2) His courage was equaled only by his patience. When pressed to act prematurely, he would only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He was never in a hurry; his composure was sublime. But he was often indignant at evil, intolerant of sin. He was often mightily moved to resist that which was inimical to the welfare of his children on earth. But his indignation against sin never led to anger at the sinner.

100:7.15 (1103.3) His courage was magnificent, but he was never foolhardy. His watchword was, “Fear not.” His bravery was lofty and his courage often heroic. But his courage was linked with discretion and controlled by reason. It was courage born of faith, not the recklessness of blind presumption. He was truly brave but never audacious.

100:7.16 (1103.4) The Master was a pattern of reverence. The prayer of even his youth bega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로 시작했다. 그는 동료의 그릇된 경배조차 존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전통을 공격하거나 인간의 잘못된 믿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참된 거룩함을 존중했지만, 동료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온당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 위대하신 것은 선행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그는 어린아이와 친하게 사귀었다. 그는 개인 생활에서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그럼에도 한 우주의 온전하게 된 사람이었다. 동역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통합된 인격체였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체험을 계속 통합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는 삶을 통합시키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며, 체험을 단순화시킨다. 그는 인간 정신에 들어가서 그 정신을 증진시키고 변형시키고 변모시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소유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되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name.” He was even respectful of the faulty worship of his fellows. But this did not deter him from making attacks on religious traditions or assaulting errors of human belief. He was reverential of true holiness, and yet he could justly appeal to his fellows, saying, “Who among you convicts me of sin?”

100:7.17 (1103.5) Jesus was great because he was good, and yet he fraternized with the little children. He was gentle and unassuming in his personal life, and yet he was the perfected man of a universe. His associates called him Master unbidden.

100:7.18 (1103.6) Jesus was the perfectly unified human personality. And today, as in Galilee, he continues to unify mortal experience and to coordinate human endeavors. He unifies life, ennobles character, and simplifies experience. He enters the human mind to elevate, transform, and transfigure it. It is literally true: “If any man has Christ Jesus within him,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ing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ing new.”

100:7.19 (1103.7)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1편. 종교의 진짜 본성

⇨ 100

유란시아 책

10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1편
종교의 진짜 본성

섹션

소개

1. 참 종교
2. 종교의 실상
3. 종교의 특징
4. 계시의 한계
5. 계시로 확대된 종교
6. 점진적 종교 체험
7.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
8. 신앙과 믿음
9. 종교와 도덕성
10. 사람을 해방시키는 종교

PAPER 101

THE REAL NATURE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1. True Religion
2. The Fact of Religion
3.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n
4. The Limitations of Revelation
5. Religion Expanded by Revelation
6. Progressive Religious Experience
7.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8. Faith and Belief
9. Religion and Morality
10. Religion as Man's Liberator

소개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는, 진화하는 미개인의 원시적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당당하게 의식하는 그런 문명화된 필사자의, 숭고하고 비길 데 없는 신앙 해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교는 점진적 사회 진화에서 생기는 선진{先進} 윤리와 도덕의 선구자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종교의 외형적이고 사회적인 형태화가 인간 사회의 윤리적 및 도덕적 추진력에 크게 영향 받음에도, 단순한 도덕 운동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의 진화하는 본성에 반드시 영감을 주지만, 그 진화의 비결은 아니다.

종교는, 인격체의 확신과 신념인데, 믿지 않는 물질 정신에 잉태된, 절망이라는 피상적으로 모순된 논리를 항상 타파할 수 있다. 순수하고 참된 내적{內的} 음성,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 정말로 있다. 그리고 영의 이런 인도는 인간 양심의 윤리적 자극과는 다

INTRODUCTION

101:0.1 (1104.1) RELIGION, as a human experience, ranges from the primitive fear slavery of the evolving savage up to the sublime and magnificent faith liberty of those civilized mortals who are superbly conscious of sonship with the eternal God.

101:0.2 (1104.2) Religion is the ancestor of the advanced ethics and morals of progressive social evolution. But religion, as such, is not merely a moral movement, albeit the outward and social manifestations of religion are mightily influenced by the ethical and moral momentum of human society. Always is religion the inspiration of man's evolving nature, but it is not the secret of that evolution.

101:0.3 (1104.3) Religion, the conviction-faith of the personality, can always triumph over the superficially contradictory logic of despair born in the unbelieving material mind. There really is a true and genuine inner voice,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And

르다. 종교적 확신의 느낌은 감정적 느낌 이상{以上}이다. 종교가 주는 확신은, 정신의 이성{理性}을 초월하고, 심지어 철학의 논리조차 초월한다. 종교는, 신앙, 신뢰, 및 확신 *이다*.

this spirit leading is distinct from the ethical prompting of human conscience. The feeling of religious assurance is more than an emotional feeling. The assurance of religion transcends the reason of the mind, even the logic of philosophy. Religion is faith, trust, and assurance.

1. 참 종교

참 종교는, 자연스런 증명으로 이치가 도출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철학 신념 체계가 아니며, 몽상적 신비주의 신봉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황홀경이라는 막연한 느낌 같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도 아니다. 종교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지만, 내부 관점에서는, 대체로 이성적이다. 종교는 인간 철학의 논리에서 도출되지 않지만, 필사자의 체험으로서는 대체로 논리적이다. 종교는, 진화적으로 유래된 도덕적 존재의 의식{意識} 속에서 신성{神性}을 체험하는 것이며; 시간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들을 맛보는 참된 체험, 즉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영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조율사는, 자신을 표현할 통로가 될 특별한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종교적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할 수 있는 신비스런 종교 기능도 없다. 필사 정신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장치를 통해서 이 체험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율사**가 변함없이 내주하고 있는 물질 정신과 직접 통신{通信}하려고 시도할 때 왜 어려움을 겪는지, 한 가지 설명이 있다.

신성한 영은,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높고 최고로 영성화된 사고 영역에서, 필사적 사람과 접촉한다.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느낌이 아니라, 너희의 **사고**다. 정신의 눈만으로 이 신성한 본성을 감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식별하는, 즉 내주하는 **조율사**의 음성을 듣는 정신은, 순결한 정신이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主}를 볼 수 없다.” 그런 모든 내적이고 영적인 친교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진화하는 아들들의 관념, 이상, 통찰력, 및 영적 분투 한가운데와 그 위에 **조율사**와 **진리의 영**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이 둘의 합동 작용이 사람의 정신에 주는 감명{感銘}으로부터, 그런 종교 체험이 생긴다.

그래서 종교는, 시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나 통찰력으로 존속하고 번창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독특한 체험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인류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에서 새롭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가장 높은 종교 체험은, 믿음, 전통, 및 권세에 속하는, 예전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종교는, 숭고한 느낌과 순전히 신비스런 감정의 소산물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 정신에

1. TRUE RELIGION

101:1.1 (1104.4) True religion is not a system of philosophic belief which can be reasoned out and substantiated by natural proofs, neither is it a fantastic and mystic experience of indescribable feelings of ecstasy which can be enjoyed only by the romantic devotees of mysticism. Religion is not the product of reason, but viewed from within, it is altogether reasonable. Religion is not derived from the logic of human philosophy, but as a mortal experience it is altogether logical. Religion is the experiencing of divinity in the consciousness of a moral being of evolutionary origin; it represents true experience with eternal realities in time, the realization of spiritual satisfactions while yet in the flesh.

101:1.2 (1104.5) The Thought Adjuster has no special mechanism through which to gain self-expression; there is no mystic religious faculty for the reception or expression of religious emotions. These experience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naturally ordained mechanism of mortal mind. And therein lies one explanation of the Adjuster's difficulty in engaging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material mind of its constant indwelling.

101:1.3 (1104.6) The divine spirit makes contact with mortal man, not by feelings or emotions, but in the realm of the highest and most spiritualized thinking. It is your *thoughts*, not your feelings, that lead you Godward. The divine nature may be perceived only with the eyes of the mind. But the mind that really discerns God, hears the indwelling Adjuster, is the pure mind. “Without holiness no man may see the Lord.” All such inner and spiritual communion is termed spiritual insight. Such religious experiences result from the impress made upon the mind of man by the combined operations of the Adjuster and the Spirit of Truth as they function amid and upon the ideas, ideals, insights, and spirit strivings of the evolving sons of God.

101:1.4 (1105.1) Religion lives and prospers, then, not by sight and feeling, but rather by faith and insight. It consists not in the discovery of new facts or in the finding of a unique experience, but rather in the discovery of new and spiritual *meanings* in facts already well known to mankind. The highest religious experience is not dependent on prior acts of belief, tradition, and authority; neither is religion the offspring of sublime feelings and purely mystical emotions. It is, rather, a profoundly deep

내주하는 영의 영향과 영적으로 친교하는 심원{深遠}하고 실제적인 체험이며, 그런 체험이 심리학 용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종교는 다만 **하나님**을 믿는 현실을 맞보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현실로서 얻는 체험에 불과하다.

종교는 물질적 우주론을 합리적으로 고찰한 결과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종교는 사람의 정신_체험에서 기원되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통찰력의 창조물이다. 종교는 신비적 명상으로 잉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리돼서 묵상함으로 잉태되지도 않지만, 늘 다소 신비스러우며, 순전히 지적인 이성과 철학적 논리 형식으로 반드시 정의내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참된 종교의 짙은, 사람의 도덕 의식(意識)의 영역에서 기원되며, 사람의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을_갈망하는 필사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_드러내는 **사도 조울사**가 현존한 결과로 발생되는, 인간 인격의 그 기능이 성장함에 따라서 드러난다.

신앙은 도덕적 통찰력과 가치기준의 양심적인 판별력을 결합하며, 선재{先在}하던 진화적 의무 감각이 참된 종교 계통을 완성시킨다. 종교 체험은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 의식, 그리고 믿는 인격체가 생존한다는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종교적 열망과 영적 충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본성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으로 몹시 감동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가 밝혀준 결과로 말미암은 진화적 의무 및 책임 감각이 사람의 도덕적 본성에 아주 깊은 인상을 줌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로 그 정신의 위치와 바로 그 혼의 태도에 마침내 도달한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혼속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심원한 존재에게--곧 신성한 조울사에게--충실하지 않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그런 계몽되고 훈련받은 개인들의 철학을 뛰어넘는 더 높은 지혜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준다.*

2. 종교의 실상

종교의 실상은, 이성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종교 체험 속에 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종교가 과학적인 것이라고, 또는 심지어 심리적인 것이라고, 언제든지 간주할 수 있다. 계시가 계시임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체험하는 바로 이 사실이다:외견상 서로 갈라지는 자연 과학, 그리고 종교에 관한 신학, 이 두 가지를

and actual experience of spiritual communion with the spirit influences resident within the human mind, and as far as such an experience is definable in terms of psychology, it is simply the experience of experiencing the reality of believing in God as the reality of such a purely personal experience.

101:1.5 (1105.2) While religion is not the product of the rationalistic speculations of a material cosmology, it is, nonetheless, the creation of a wholly rational insight which originates in man's mind-experience. Religion is born neither of mystic meditations nor of isolated contemplations, albeit it is ever more or less mysterious and always indefinable and inexplicable in terms of purely intellectual reason and philosophic logic. The germs of true religion originate in the domain of man's moral consciousness, and they are revealed in the growth of man's spiritual insight, that faculty of human personality which accrues as a consequence of the presence of the God-revealing Thought Adjuster in the God-hungry mortal mind.

101:1.6 (1105.3) Faith unites moral insight with conscientious discriminations of values, and the pre-existent evolutionary sense of duty completes the ancestry of true religion. The experience of religion eventually results in the certain consciousness of God and in the undoubted assurance of the survival of the believing personality.

101:1.7 (1105.4) Thus it may be seen that religious longings and spiritual urges are not of such a nature as would merely lead men to *want* to believe in God, but rather are they of such nature and power that men are profoundly impressed with the conviction that they *ought* to believe in God. The sense of evolutionary duty and the obligations consequent upon the illumination of revelation make such a profound impression upon man's moral nature that he finally reaches that position of mind and that attitude of soul where he concludes that he *has no right not to believe in God*. The higher and superphilosophic wisdom of such enlightened and disciplined individuals ultimately instructs them that to doubt God or distrust his goodness would be to prove untrue to the *reallest* and *deepest* thing within the human mind and soul — the divine Adjuster.

2. THE FACT OF RELIGION

101:2.1 (1105.5) The fact of religion consists wholly i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rational and average human beings. And this is the only sense in which religion can ever be regarded as scientific or even psychological. The proof that revelation is revelation is this same fact of human experience: the fact that revelation does synthesize the apparently divergent sciences of nature and the

일관되고 논리적인 하나의 우주 철학이 되도록, 즉 일치되고 완전한 해석이 되도록 과학과 종교를 계시가 합성함에 따라서, 정신을 조화시키고 영을 만족시키는데, 물질 속에서, 정신들과 함께, 그리고 영에게, **무한자**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몹시 알고 싶어 하는 필사 정신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인간 체험 속에서 대담하다.

이성은 과학의 방법이고; 신앙은 종교의 방법이며; 논리는 철학이 시도하는 기법이다. 정신이 중재해서 물질과 영의 실체 및 관계를 납득함에 통일을 이루는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계시는 모론시아 관점의 부재{不在}를 보정한다. 그리고 참된 계시는 결코, 과학을 사악한 것으로, 종교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또는 철학을 비논리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성은 과학의 연구를 통해 자연을 거꾸로 추적해서 **최초 원인**에 이를 수 있지만, 과학의 **최초 원인**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는 종교적 신앙이 요구되며; 그런 신앙, 그런 영적 통찰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계시가 추가로 요구된다.

인간의 생존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기본 이유가 있다:

1. 인간의 체험, 개인의 확신, 내주하는 **사조 조율사**가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마음 속에 새긴, 희망과 신뢰감.

2. **진리의 영**이 몸소 직접 사역함으로 인한, 신성한 **아들**들이 이 세상에 증여됨으로 말미암은, 또는 기록된 말씀의 계시를 통한, 진리의 계시.

과학은 **최초 원인**을 가정함으로써 그 논리와 탐색을 끝낸다. 종교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기 전에는 신앙으로 날아오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과학의 식별력 있는 연구는, **절대자**의 실체와 생존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종교는, 인격 생존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실존과 실체를 숨김없이 믿는다. 형이상학이 완전히 실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 철학마저 부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계시가 해 주는데; 다시 말해서, 과학에서 이 **최초 원인**과 종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은 **아주 동일한 신격**임을 확인한다.

이성은 과학을 증명하고, 신앙은 종교를 증명하며, 논리는 철학을 증명하지만, 계시는 오직 인간의 **체험**으로만 확인된다. 과학은 지식을 낳고; 종교는 행복을 가져오고; 철학은 통일을 이룩하며; 우주 실체에 이르는 이 삼중적 접근법이 체험으로 조화되는 것을 계시가 확인한다.

자연을 숙고하는 것은, 자연의 **하나님**, 즉 그 운행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은 오직, 물질, 운행, 및 생기를--곧 생명을-- 드러낸다. 물질과 에너지의 결합은, 어떤 조

theology of religion into a consistent and logical universe philosophy, a co-ordinated and unbroken explanation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thus creating a harmony of mind and satisfaction of spirit which answers in human experience those questionings of the mortal mind which craves to know how the Infinite works out his will and plans in matter, with minds, and on spirit.

101:2.2 (1106.1) Reason is the method of science; faith is the method of religion; logic is the attempted technique of philosophy. Revelation compensates for the absence of the morontia viewpoint by providing a technique for achieving unity in the comprehension of the reality and relationships of matter and spirit by the mediation of mind. And true revelation never renders science unnatural, religion unreasonable, or philosophy illogical.

101:2.3 (1106.2) Reason, through the study of science, may lead back through nature to a First Cause, but it requires religious faith to transform the First Cause of science into a God of salvation; and revelation is further required for the validation of such a faith, such spiritual insight.

101:2.4 (1106.3) There are two basic reasons for believing in a God who fosters human survival:

101:2.5 (1106.4) 1. Human experience, personal assurance, the somehow registered hope and trust initiated by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01:2.6 (1106.5) 2. The revelation of truth, whether by direct personal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by the world bestowal of divine Sons, or through the revelations of the written word.

101:2.7 (1106.6) Science ends its reason-search in the hypothesis of a First Cause. Religion does not stop in its flight of faith until it is sure of a God of salvation. The discriminating study of science logically suggests the reality and existence of an Absolute. Religion believes unreservedly in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a God who fosters personality survival. What metaphysics fails utterly in doing, and what even philosophy fails partially in doing, revelation does; that is, affirms that this First Cause of science and religion's God of salvation are *one and the same Deity*.

101:2.8 (1106.7) Reason is the proof of science, faith the proof of religion, logic the proof of philosophy, but revelation is validated only by human *experience*. Science yields knowledge; religion yields happiness; philosophy yields unity; revelation confirms the experiential harmony of this triune approach to universal reality.

101:2.9 (1106.8) The contemplation of nature can only reveal a God of nature, a God of motion. Nature exhibits only matter, motion, and animation — life. Matter plus energy, under certain conditions, is manifested in living forms, but while natural life is

건 아래서 살아있는 형태를 겉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나 자연의 생명이 현상으로는 그렇게 비교적 연속적이지만, 개체에게는 아주 일시적이다. 자연은, 인간_인격의 생존을 논리적으로 믿을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혼 속에서, 처음부터 바로 이 인격적 **하나님**을 이미 발견했다.

신앙이 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낸다. 계시는, 진화 세계에서 모론시아 통찰력의 대용품이며, 신앙이 사람의 혼 속에 나타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이 자연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계시는, 물질계와 영계 사이, 심지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큰 간격에 다리를 놓는 데 성공한다.

자연을 숙고하는 것이, 지성적 안내와 심지어 생생한 통제 방향을 논리적으로 지시하지만, 어떤 만족스런 방법으로도,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자연은,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주를 간주하지 못하도록 막을만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연구는 우주에 대한 더 높고 더 영적인 해석과 전적으로 양립한다.

계시는, 획기적인 현상으로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며; 개인적인 인간 체험으로서는 연속으로 일어난다. 필사자의 인격 안에서, **아버지**의 **조율사** 선물로서, **아들**의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우주적 영**의 **거룩한 영**으로서 신성(神性)이 작용하며, 한편 이런 세 가지 초인적 재능은 인간의 체험적 진화 속에서 **지존자**의 사역으로서 통합된다.

참 종교는, 실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고, 도덕 의식이 낳은 신앙_산물이며, 독단적 교리로 이뤄진 어떤 기관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 자신이 우리 영에게 증거 하는” 체험으로 이뤄진다. 종교는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혼의 숭고한 신뢰에 있다.

너의 가장 깊은 본성이--곧 신성한 **조율사**가--네 속에 의(義)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즉 신성한 완전성을 향한 어떤 갈망을 창출한다.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려는 이런 내적 충동을 인식하는 신앙의 행위이며; 구원받는 길, 즉 인격이 생존하고, 참되고 선하다고 네가 간주하게 된 모든 가치가 생존하는 기법이라고 네가 의식하게 되는, 그런 혼의 신뢰, 그런 확신이 이처럼 생긴다.

종교에 대한 깨달음은, 위대한 배움이나 현명한 논리에 따라서 이뤄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영적 통찰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 가운데 일부,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까지

thus relatively continuous as a phenomenon, it is wholly transient as to individualities. Nature does not afford ground for logical belief in human-personality survival. The religious man who finds God in nature has already and first found this same personal God in his own soul.

101:2.10 (1106.9) Faith reveals God in the soul. Revelation, the substitute for morontia insight on an evolutionary world, enables man to see the same God in nature that faith exhibits in his soul. Thus does revelation successfully bridge the gulf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even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between man and God.

101:2.11 (1107.1) The contemplation of nature does logically point in the direction of intelligent guidance, even living supervision, but it does not in any satisfactory manner reveal a personal God. On the other hand, nature discloses nothing which would preclude the universe from being looked upon as the handiwork of the God of religion. God cannot be found through nature alone, but man having otherwise found him, the study of nature becomes wholly consistent with a higher and more 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101:2.12 (1107.2) Revelation as an epochal phenomenon is periodic; as a personal human experience it is continuous. Divinity functions in mortal personality as the Adjuster gift of the Father, as the Spirit of Truth of the Son, and as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Spirit, while these three supermortal endowments are unified in human experiential evolution as the ministry of the Supreme.

101:2.13 (1107.3) True religion is an insight into reality, the faith-child of the moral consciousness, and not a mere intellectual assent to any body of dogmatic doctrines. True religion consists in the experience that “the Spirit it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Religion consists not in theologic propositions but in spiritual insight and the sublimity of the soul’s trust.

101:2.14 (1107.4) Your deepest nature — the divine Adjuster — creates within you a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 certain craving for divine perfection. Religion is the faith act of the recognition of this inner urge to divine attainment; and thus is brought about that soul trust and assurance of which you become conscious as the way of salvation, the technique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and all those values which you have come to look upon as being true and good.

101:2.15 (1107.5) The realization of religion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dependent on great learning or clever logic. It is spiritual insight, and that is just the reason why some of the world’s greatest religious teachers, even the prophets,

도 때로 세상의 지혜를 왜 그토록 적게 소유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다. 종교적인 신앙은,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똑같이 유효하다.

종교는 언제든지 그 자체의 비평가와 재판관이 돼야 하며; 외부에서는 이해하기는커녕, 전혀 관찰할 수도 없다.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너의 유일한 확신은, 영적인 것에 대한 너의 믿음 및 체험에 관한 너 자신의 통찰력에 있다. 비슷한 체험을 이미 했던 어떤 동료에게든지, **하나님**의 인격 또는 실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어떤 가능한 논쟁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설득할 수는 결코 없다.

심리학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종교가 반응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종교의 작용과 실제적이고 내적인 동기에 이르기까지 파고들기를 바랄 수는 결코 없다. 오직 신앙의 영역이고 계시의 기법인 신학만이, 종교 체험의 본성과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지성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3. 종교의 특징

종교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배움 없는 데서도 존속된다. 잘못된 우주론과 그릇된 철학으로 오염됐음에도, 종교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심지어 형이상학의 혼란을 겪고도 살아남는다. 종교의 역사적 변천 내내, 그리고 그 변천을 통해서, 인간이 진보하고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것, 즉: 윤리적 양심과 도덕의식(意識)이 늘 존속한다.

신앙의 통찰, 즉 영적 직관(直觀)은, **사고 조율사**와 관련된 시공우주 정신의 기증품인데, 이 **조율사**는 **아버지**가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이다. 영적 이성, 즉 혼{魂}의 지성은 **거룩한 영**의 기증품인데, **창조적 영**이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이다. 영적 철학, 즉 영 실체들을 깨닫는 지혜는 **진리의 영**의 기증품인데, 이 **진리의 영**은 증여 **아들**이 사람의 자손에게 합동으로 수여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런 영{靈} 재능들을 조정하고 서로 연합시키는 것이, 사람을 잠재적 운명을 가진 영 인격체로 만든다.

원시적이고 미발달된 형태로 있는 바로 이 영 인격을 **조율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육체가 자연사를 겪은 뒤에 생존한다. 생명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물질계와 영계의 그런 일시적 동반자 관계가 분리될 때, 영에서 기원된 이 혼합 실체는 인간의 체험과 결합하여, 신성한 **아들**들이 마련한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로 이뤄진 물질 자아의 분해 이후에 (**조율사**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의 혼은,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스스로를

have sometimes possessed so little of the wisdom of the world. Religious faith is available alike to the learned and the unlearned.

101:2.16 (1107.6) Religion must ever be its own critic and judge; it can never be observed, much less understood, from the outside. Your only assurance of a personal God consists in your own insight as to your belief in, and experience with, things spiritual. To all of your fellows who have had a similar experience, no argument about the personality or reality of God is necessary, while to all other men who are not thus sure of God no possible argument could ever be truly convincing.

101:2.17 (1107.7) Psychology may indeed attempt to study the phenomena of religious reactions to the social environment, but never can it hope to penetrate to the real and inner motives and workings of religion. Only theology, the province of faith and the technique of revelation, can afford any sort of intelligent account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religious experience.

3.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N

101:3.1 (1107.8) Religion is so vital that it persists in the absence of learning. It lives in spite of its contamination with erroneous cosmologies and false philosophies; it survives even the confusion of metaphysics. In and through all the historic vicissitudes of religion there ever persists that which is indispensable to human progress and survival: the ethical conscience and the moral consciousness.

101:3.2 (1108.1) Faith-insight, or spiritual intuition, is the endowment of the cosmic mind in associ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which is the Father's gift to man. Spiritual reason, soul intelligence, is the endowment of the Holy Spirit, the Creative Spirit's gift to man. Spiritual philosophy, the wisdom of spirit realities, is the endowment of the Spirit of Truth, the combined gift of the bestowal Sons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e co-ordination and interassociation of these spirit endowments constitute man a spirit personality in potential destiny.

101:3.3 (1108.2) It is this same spirit personality, in primitive and embryonic form, the Adjuster possession of which survives the natural death in the flesh. This composite entity of spirit origin in association with human experience is enabled, by means of the living way provided by the divine Sons, to survive (in Adjuster custody) the dissolution of the material self of mind and matter when such a transient partnership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s divorced by the cessation of vital motion.

101:3.4 (1108.3) Through religious faith the soul of

드러내고, 솟아나는 혼의 본성이 지닌 잠재적 신성을 나타내는데, 독자적 방식으로 지적이고 시험하는 어떤 견디기 어려운 사회 상황에 반응하도록, 그 신앙이 필사자 인격을 유도한다. 진정한 영적 신앙(곧 참된 도덕의식)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는데, 그 신앙은:

1. 타고난 불리한 동물적 성향이 있음에도, 윤리와 도덕이 진보하도록 만든다.

2. 쓰라린 실망과 압도적 패배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탁월한 신뢰를 창출한다.

3. 자연의 역경과 물리적 재난에도, 강한 용기와 확신을 발생시킨다.

4. 어쩔 수 없는 질병과 심지어 격렬한 육체적 고난에도, 절망할 수 없는 평정과 지속적인 평온을 나타낸다.

5. 부당한 대우와 가장 지독한 불법 앞에서도, 인격의 신비로운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시킨다.

6. 암담하게 닥치는 숙명이 잔인한 듯 보이고, 겉보기에 자연 세력이 인간의 복지에 전혀 냉담한 듯해도, 궁극에 승리하는 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킨다.

7. 모든 논리의 불리한 논증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속시키고, 다른 모든 지적 궤변을 성공적으로 견뎌낸다.

8. 그릇된 과학의 현혹시키는 교훈과 불합리한 철학의 능란한 기만에 상관없이, 혼이 생존할 것이라는 담대한 신앙을 계속 나타낸다.

9. 현대의 복잡하고 편파적인 문명이 주는 압도적인 부담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승리한다.

10. 인간의 이기심, 사회적 적대감, 산업의 탐욕, 및 정치적 부적응에도, 이타주의(利他主義)가 계속 존속하도록 기여한다.

11. 악과 죄가 당혹스럽게 현존함에 상관없이, 우주의 통일과 신성한 안내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확고히 신봉하게 한다.

12.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줄곧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신성한 영 또는 그의 속에 거주하는 영들을 갖고 있음을 세 가지 현상으로 아는데: 첫째, 개인의 체험으로--곧 종교적 신앙으로; 둘째, --개인적 및 민족적-- 계시로; 셋째, 진짜 인간 실존의 실제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앞에 상술한 열두 가지의 영(靈)다운 행적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물질 환경에 대한 그런 색다

man reveals itself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divinity of its emerging nature by the characteristic manner in which it induces the mortal personality to react to certain trying intellectual and testing social situations. Genuine spiritual faith (true moral consciousness) is revealed in that it:

101:3.5 (1108.4) 1. Causes ethics and morals to progress despite inherent and adverse animalistic tendencies.

101:3.6 (1108.5) 2. Produces a sublime trust in the goodness of God even in the face of bitter disappointment and crushing defeat.

101:3.7 (1108.6) 3. Generates profound courage and confidence despite natural adversity and physical calamity.

101:3.8 (1108.7) 4. Exhibits inexplicable poise and sustaining tranquillity notwithstanding baffling diseases and even acute physical suffering.

101:3.9 (1108.8) 5. Maintains a mysterious poise and composure of personality in the face of maltreatment and the rankest injustice.

101:3.10 (1108.9) 6. Maintains a divine trust in ultimate victory in spite of the cruelties of seemingly blind fate and the apparent utter indifference of natural forces to human welfare.

101:3.11 (1108.10) 7. Persists in the unswerving belief in God despite all contrary demonstrations of logic and successfully withstands all other intellectual sophistries.

101:3.12 (1108.11) 8. Continues to exhibit undaunted faith in the soul's survival regardless of the deceptive teachings of false science and the persuasive delusions of unsound philosophy.

101:3.13 (1108.12) 9. Lives and triumphs irrespective of the crushing overload of the complex and partial civilizations of modern times.

101:3.14 (1108.13) 10. Contributes to the continued survival of altruism in spite of human selfishness, social antagonisms, industrial greeds, and political maladjustments.

101:3.15 (1108.14) 11. Steadfastly adheres to a sublime belief in universe unity and divine guidance regardless of the perplexing presence of evil and sin.

101:3.16 (1108.15) 12. Goes right on worshiping God in spite of anything and everything. Dares to declare, “Even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serve him.”

101:3.17 (1108.16) We know, then, by three phenomena, that man has a divine spirit or spirits dwelling within him: first, by personal experience — religious faith; second, by revelation — personal and racial; and third, by the amazing exhibition of such extraordinary and unnatural reactions to his material environment as are illustrated by the

르고 부자연스런 반응을 놀랍게 표명하는 것으로 이를 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의 바로 그런 생생하고 활발한 행적이, 인간 본성 중에서 최고의 재능, 즉 종교 체험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 체험이 영적 실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사적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4. 계시의 한계

너희 세계가, 기원{起源}에 대해서, 심지어 물리적 기원에 대해서도 대개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주론에 지침을 주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항상 말썽을 일으켰다. 계시의 법칙은, 노력 없이 얻은 지식, 즉 미성숙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으로 우리를 크게 방해했다.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으로서 제시된 우주론은, 모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써먹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그런 계시를 공부하는 훗날의 연구자들은, 계시에 제시된 관련된 우주론이 외견상 잘못됐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담고 있을지 모르는 참된 종교적 진리의 어떤 요소든지 다 폐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진리의 계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감독관들이 내리는 지시사항으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을, 인류는 이해해야 한다. 1,000년 동안에 이뤄질 과학의 발견을 앞지르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 계시자들은, 계시 명령의 일부를 형성하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며,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이다. 이 일련의 계시 발표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종교의 진리는, 다가오는 시대의 기록에서 계속 유효하겠지만, 자연 과학에 관련된 우리의 진술 가운데 다수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발견과 부가적 과학 발달에 따라 교정돼야 할 필요성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발견의 결과를 지금도 예견하지만, 인간적으로 발견되지 못한 그런 사실을 본 계시 기록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금지돼 있다. 계시가 반드시 영감{靈感}받을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본 계시의 우주론은 영감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우주론은, 현재의 지식을 조정하고 분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제한된다. 신성하거나 영적인 통찰력은 선물인 반면, **인간의 지혜는 진화해야 한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의 계시인데: 내주하는 **조울사**의 활동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자기계시이며; 획기적 시대의 계시는, 어떤 다른 천상{天上}의 매개체, 집단, 또는 인격체의 역할로 제시될 때다.

결국, 종교는 그 열매로, 즉 종교 자체에 본래부터 있는 신성한 탁월성을 나타내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서 판단돼야 한다.

foregoing recital of twelve spiritlike performances in the presence of the actual and trying situations of real human existence. And there are still others.

101:3.18 (1109.1) And it is just such a vital and vigorous performance of faith in the domain of religion that entitles mortal man to affirm the personal possession and spiritual reality of that crowning endowment of human nature, religious experience.

4. THE LIMITATIONS OF REVELATION

101:4.1 (1109.2) Because your world is generally ignorant of origins, even of physical origins, it has appeared to be wise from time to time to provide instruction in cosmology. And always has this made trouble for the future. The laws of revelation hamper us greatly by their proscription of the impartation of unearned or premature knowledge. Any cosmology presented as a part of revealed religion is destined to be outgrown in a very short time. Accordingly, future students of such a revelation are tempted to discard any element of genuine religious truth it may contain because they discover errors on the face of the associated cosmologies therein presented.

101:4.2 (1109.3) Mankind should understand that we who participate in the revelation of truth are very rigorously limited by the instructions of our superiors. We are not at liberty to anticipate the scientific discoveries of a thousand years. Revelators must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hich form a part of the revelation mandate. We see no way of overcoming this difficulty, either now or at any future time. We full well know that, while the historic facts and religious truths of this series of revelatory presentations will stand on the records of the ages to come, within a few short years many of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physical sciences will stand in need of revision in consequence of additional scientific developments and new discoveries. These new developments we even now foresee, but we are forbidden to include such humanly undiscovered facts in the revelatory records. Let it be made clear that revelations are not necessarily inspired. The cosmology of these revelations is *not inspired*. It is limited by our permission for the co-ordination and sorting of present-day knowledge. While divine or spiritual insight is a gift, *human wisdom must evolve*.

101:4.3 (1109.4) Truth is always a revelation: autorevelation when it emerges as a result of the work of the indwelling Adjuster; epochal revelation when it is presented by the function of some other celestial agency, group, or personality.

101:4.4 (1109.5) In the last analysis, religion is to be judged by its fruits, according to the manner and the extent to which it exhibits its own inherent and

게시가 변함없이 영적 현상일지라도, 진리는 다만 상대적으로 영감(靈感) 받을 지도 모른다. 우주론과 관련된 설명은 결코 영감 받지 않았지만, 그런 계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일시나마 지식을 뚜렷이 설명하므로, 굉장한 가치가 있다:

1. 권위 있게 오류를 없앴으로써 혼돈을 줄임.
2. 이미 알려졌거나 곧 알려지게 _돼_ 있는 사실과 관찰결과를 조정함.
3. 먼 과거에 있었던 획기적 진행사항들과 관련된, 잃어버린 지식의 중요한 조각들을 복구함.
4. 다른 방법으로 획득된 지식에서 분실된, 지극히 중대한 공백을 채우게 될 정보를 제공함.
5. 수반하는 계시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밝히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우주 자료를 제시함.

5. 계시로 확대된 종교

영이 획득한 진리 가운데서 진화적 오류를 분류하고 가려내는 필수 작업에서, 계시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절약하는 기법이다.

과학은 사실을 취급하며;종교는 오직 *가치*기 준에만 관심을 쏟는다. 정신은, 계몽된 철학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기준, 이 두 의미를 통합시키려고 애쓰며,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실체* 개념에 도달한다. 과학은 지식의 영역이고, 철학은 지혜의 영역이며, 종교는 신앙 체험의 분야임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종교는 다음과 같은 두 국면에서 형태화된다:

1. 진화 종교. 원시적 경배 체험, 즉 정신에서 파생된 종교.
2. 계시된 종교. 영에서 파생된, 우주에 대한 태도;영원한 실체들이 보존되고, 인격이 생존하고, 궁극에 시공우주 *신격*에 도달하며, 그 *신격*의 목적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 조만간에 진화 종교가 영적으로 확장된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예정된 것은, 우주 계획의 일부분이다.

과학과 종교 둘 다, 논리적 추론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어떤 기초를 가정(假定)하면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철학 역시, 다음 세 가지 실체를 가정하고 그 경력을 시작해야 한다:

divine excellence.

101:4.5 (1109.6) Truth may be but relatively inspired, even though revelation is invariably a spiritual phenomenon. While statements with reference to cosmology are never inspired, such revelations are of immense value in that they at least transiently clarify knowledge by:

- 101:4.6 (1109.7) 1. The reduction of confusion by the authoritative elimination of error.
- 101:4.7 (1109.8) 2. The co-ordination of known or about-to-be-known facts and observations.
- 101:4.8 (1110.1) 3. The restoration of important bits of lost knowledge concerning epochal transactions in the distant past.
- 101:4.9 (1110.2) 4. The supplying of information which will fill in vital missing gaps in otherwise earned knowledge.
- 101:4.10 (1110.3) 5. Presenting cosmic data in such a manner as to illuminate the spiritual teachings contained in the accompanying revelation.

5. RELIGION EXPANDED BY REVELATION

101:5.1 (1110.4) Revelation is a technique whereby ages upon ages of time are saved in the necessary work of sorting and sifting the errors of evolution from the truths of spirit acquirement.

101:5.2 (1110.5) Science deals with *facts*; religion is concerned only with *values*. Through enlightened philosophy the mind endeavors to unite the meanings of both facts and values, thereby arriving at a concept of complete *reality*. Remember that science is the domain of knowledge, philosophy the realm of wisdom, and religion the sphere of the faith experience. But religion, nonetheless, presents two phases of manifestation:

- 101:5.3 (1110.6) 1. Evolutionary religion. The experience of primitive worship, the religion which is a mind derivative.
- 101:5.4 (1110.7) 2. Revealed religion. The universe attitude which is a spirit derivative; the assurance of, and belief in, the conservation of eternal realities, the survival of personality, and the eventual attainment of the cosmic Deity, whose purpose has made all this possible. It is a part of the plan of the universe that, sooner or later, evolutionary religion is destined to receive the spiritual expansion of revelation.

101:5.5 (1110.8) Both science and religion start out with the assumption of certain generally accepted bases for logical deductions. So, also, must philosophy start its career upon the assumption of the reality of three things:

1. 물질적인 몸.

2. 혼 또는 심지어 내주하는 영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초물질 국면.

3. 인간의 정신, 즉 영과 물질 사이에,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상관하는 장치.

과학자는 사실을 모아서 정리하고, 철학자는 관념들을 조화시키며, 한편 선지자는 이상{理想}을 높인다. 느낌과 감정은, 종교의 변함없는 부수물이지만,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체험에 대한 느낌일지 모르지만, 느끼는 체험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본질적으로는, 논리(곧 합리화)뿐 아니라 감정(곧 느낌)도 종교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개인 정신 상태와 기질의 성향에 따라서, 그 둘은 실체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을 촉진하는 신앙 연습과 다양하게 관련될지도 모른다.

진화 종교는, 진화하는 사람 안에서 경배하는 버릇을 만들고 육성하는 일을 맡은, 지방우주 정신 보조체가 부여한 재능이 성취한 것이다. 그런 원시 종교는, 인간의 의무 감각인 윤리와 도덕에 직접 관련된다. 그런 종교는 양심의 보증에 입각하며, 비교적 윤리가 있는 문명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계시된 종교는, **낙원 삼위일체**의 세 인격체를 대표하는 증여 영들의 후원을 받으며, 특히 진리의 확장에 관여한다. 진화 종교는 개인에게 개인의 의무 관념을 알아듣게 만들며; 계시된 종교는 사랑하기를, 즉 황금률을 더욱 강조한다.

진화된 종교는 전적으로 신앙에 의존한다. 계시는, 신성 및 실체에 관해 확장된 진리가 제시된다는 추가된 보장을 받고, 실제 체험이라는 훨씬 가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 체험은, 진화로 얻은 신앙과, 계시에 속하는 진리, 이 두 가지가 실무에서 실용적으로 합동한 결과로서 누적된다. 인간의 신앙과 신성한 진리의 그런 실무 합동이, 모론시아 인격을 실제로 획득하러 가는 길에서 바람직한 성품을 점유하게 한다.

진화 종교는 신앙을 확신시키고 양심을 확증시켜줄 뿐이며; 계시 종교는 신앙의 확신뿐 아니라 계시된 실체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진리를 제공한다. 종교에서 셋째 단계, 즉 종교 체험에서 셋째 국면은, 모론시아 상태와 상관이 있으며, 이것은 모타를 더 확고히 붙잡는 것이다. 모론시아 진보에서는, 계시된 종교의 진리가 점점 더 확장되며; 너희는, 최상의 가치기준, 신성한 선함, 보편적 관계, 영원한 실체, 및 궁극의 운명에 대한 진리를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101:5.6 (1110.9) 1. The material body.

101:5.7 (1110.10) 2. The supermaterial phase of the human being, the soul or even the indwelling spirit.

101:5.8 (1110.11) 3. The human mind, the mechanism for intercommunication and interassociation between spirit and matter,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101:5.9 (1110.12) Scientists assemble facts, philosophers co-ordinate ideas, while prophets exalt ideals. Feeling and emotion are invariable concomitants of religion, but they are not religion. Religion may be the feeling of experience, but it is hardly the experience of feeling. Neither logic (rationalization) nor emotion (feeling) is essentially a part of religious experience, although both may variously be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faith in the furtherance of spiritual insight into reality, all according to the status and temperamental tendency of the individual mind.

101:5.10 (1110.13) Evolutionary religion is the outworking of the endowment of the local universe mind adjutant charged with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the worship trait in evolving man. Such primitive religions are directly concerned with ethics and morals, the sense of human duty. Such religions are predicated on the assurance of conscience and result in the stabilization of relatively ethical civilizations.

101:5.11 (1111.1) Personally revealed religions are sponsored by the bestowal spirits representing the thre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expansion of truth. Evolutionary religion drives home to the individual the idea of personal duty; revealed religion lays increasing emphasis on loving, the golden rule.

101:5.12 (1111.2) Evolved religion rests wholly on faith. Revelation has the additional assurance of its expanded presentation of the truths of divinity and reality and the still more valuable testimony of the actual experience which accumulates in consequence of the practical working union of the faith of evolution and the truth of revelation. Such a working union of human faith and divine truth constitutes the possession of a character well on the road to the actual acquirement of a morontial personality.

101:5.13 (1111.3) Evolutionary religion provides only the assurance of faith and the confirmation of conscience; revelatory religion provides the assurance of faith plus the truth of a living experience in the realities of revelation. The third step in religion, or the third phase of the experience of religion, has to do with the morontia state, the firmer grasp of mota. Increasingly in the morontia progression the truths of revealed religion are expanded; more and more you will know the truth of supreme values, divine goodnesses,

모론시아 진보 전반에 걸쳐서, 진리의 확신이 신앙의 확신을 점점 대체시킬 것이다. 너희가 마침내 실제 영 세계 속으로 부름 받게 되면, 순수한 영 통찰력이 주는 확신은, 신앙과 진리 대신 작용하든지, 또는 도리어 인격체가 확신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기법과 더불어,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작용할 것이다.

6. 점진적 종교 체험

게시된 종교의 모론시아 국면은 **생존 체험**과 상관이 있으며, 그 국면의 큰 욕구는, 영이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더욱 윤리적으로 봉사하도록 재촉하는 부름과 관련해서, 더 강한 경배 욕구도 있다. 모론시아 통찰력은, **칠중존재, 지존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에 대한 늘_확장하는 의식(意識)을 수반한다.

맨 처음에 물질 수준에서 시작할 때부터, 온전한 영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종교 체험 전반에 걸쳐서, **조율사**는 **지존자**가 실존하는 실체임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비결이며; 바로 이 **조율사**는 또한 초월적으로 **궁극자**에게 도달하는 너희 신앙의 비결도 쥐고 있다. 진화하는 사람의 체험적 인격은, 실존적인 **하나님**의 **조율사** 본질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실존을 완성할 잠재력이며, 이것은 선천적으로, 선험적(先驗的)인 인격이 초월유한(超越有限) 결말에 이르기 위한 기초다.

도덕적 의지는, 사리에 맞는 지식에 기초하고, 지혜로 인해 증대되고, 종교적 신앙이 인정한 결정을 포함한다. 그런 선택은 도덕적 본성의 행동이고 도덕적 인격이 실존한다는 증거인데, 도덕적 인격은 모론시아 인격의 선구자이고 결국에는 참된 영 신분의 선구자다.

진화로 얻는 유형의 지식은, 원형질의 기억 물질이 축적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피조물의 의식(意識)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지혜는, 연합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원형질의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관념들을 포함하며, 그런 현상은 인간의 정신을 단순한 동물 정신과 구분시킨다. 동물도 지식이 있지만,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만이 소유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영, 즉 **사고 조율사**와 **진리의 영**을 그런 정신에게 수여함으로써, 지혜를_부여받은 개인이 진리를 이용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 증여됐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세례 받을 때까지 진화 종교의 영향 아래서 살았다. 그는 그때부터 십자가형 사건이 끝나기까지,

universal relationships, eternal realities, and ultimate destinies.

101:5.14 (1111.4) Increasingly throughout the morontia progression the assurance of truth replaces the assurance of faith. When you are finally mustered into the actual spirit world, then will the assurances of pure spirit insight operate in the place of faith and truth or, rather, in conjunction with, and superimposed upon, these former techniques of personality assurance.

6. PROGRESSIVE RELIGIOUS EXPERIENCE

101:6.1 (1111.5) The morontia phase of revealed religion has to do with the *experience of survival*, and its great urge is the attainment of spirit perfection. There also is present the higher urge of worship, associated with an impelling call to increased ethical service. Morontia insight entails an ever-expanding consciousness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even the Ultimate.

101:6.2 (1111.6) Throughout all religious experience, from its earliest inception on the material level up to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full spirit status, the Adjuster is the secret of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existence of the Supreme; and this same Adjuster also holds the secrets of your faith in the transcendental attainment of the Ultimate.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evolving man, united to the Adjuster essence of the existential God, constitutes the potential completion of supreme existence and is inherently the basis for the superfinite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 personality.

101:6.3 (1111.7) Moral will embraces decisions based on reasoned knowledge, augmented by wisdom, and sanctioned by religious faith. Such choices are acts of moral nature and evidence the existence of moral personality, the forerunner of morontia personality and eventually of true spirit status.

101:6.4 (1111.8) The evolutionary type of knowledge is but the accumulation of protoplasmic memory material; this is the most primitive form of creature consciousness. Wisdom embraces the ideas formulated from protoplasmic memory in process of association and recombination, and such phenomena differentiate human mind from mere animal mind. Animals have knowledge, but only man possesses wisdom capacity. Truth is made accessible to the wisdom-endowed individual by the bestowal on such a mind of the spirits of the Father and the Sons, the Thought Adjuster and the Spirit of Truth.

101:6.5 (1112.1) Christ Michael, when bestowed on Urantia, lived under the reign of evolutionary religion up to the time of his baptism. From that moment up to and including the event of his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혼합된 안내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갔다. 그가 부활한 그날 아침부터 승천이 있을 때까지는, 물질 세계로부터 영 세계까지, 필사 과도기에 해당하는 모른시아 생애의 여러 단계를 지나갔다. **미가엘**은 승천한 후에, **지존성** 체험, 즉 **지존자**에 대한 깨달음의 주인이 됐으며,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무제한의 수용력을 소유한 유일한 인격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해서, 최상의 주권을 가진 지위를 즉시 달성했다.

사람이었지만, 궁극에 융합하고 그 결과로 생긴 내주하는 **조울사**와 하나됨--곧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을 인격이 합성함--은, 잠재적으로는 그를 **지존자**의 살아있는 한 부분이 되게 했으며, 그런 한때 필사 존재로 하여금 **지존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존자**와 함께, 우주 사역의 궁극성을 끝없이 추구하는 영원한 장자상속권을 확립하게 했다.

계시는 필사적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간 진행이라는 수단으로 공간을 거치는 그런 장엄하고도 흥미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관념과 결정으로 체계화해야 하며; 그 다음에 사람은, 냉정한 여러 관념을, 심지어 관념으로서 너무나 이치에 맞고, 이상으로서 너무나 논리적인 그런 개념들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실용적이지만 그럼에도 숭고한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고귀한 과제에 끊임없이 지혜를 이용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래서 **조울사**가 그 개념들을 감히 혼합하고 영화{靈化}시켜서, **아들**들의 **진리 영**이 행동하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된, 실제 인간의 보충물이 되도록 이 개념들을 유한한 정신 속에서 그런 연합에 소용되게 만드는데, 이 **진리 영**은, 시공간에 현시되는 **낙원** 진리--곧 보편적 진리--의 표현이다. 관념 결정, 논리적 이상, 및 신성한 진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의로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른시아 세계들의 계속 확장하고 점점 더 영적인 실체에, 필사자가 친숙해지는 데 필수 조건이다.

예수의 교훈은, 조화롭게 조정된 지식, 지혜, 신앙, 진리, 및 사랑을 아주 넘치게 담고 있어서, 현세의 평안, 지적 확신, 도덕적 계몽, 철학적 안정성, 윤리적 민감성, **하나님** 의식, 및 개인의 생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완벽하게 동시에 제공하는, 첫 **유란시아** 종교를 설립했다. **예수**의 신앙은, 인간 구원의 완결성, 즉 필사자가 우주에서 달성하는 궁극점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줬는데, 다음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1.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개인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물질의 족쇄로부터 구원됨.

2. 지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됨: 사람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함.

crucifixion he carried forward his work by the combined guidance of evolutionary and revealed religion. From the morning of his resurrection until his ascension he traversed the manifold phases of the morontia life of mortal transition from the world of matter to that of spirit. After his ascension Michael became master of the experience of Supremacy, the realization of the Supreme; and being the one person in Nebadon possessed of unlimited capacity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the Supreme, he forthwith attained to the status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in and to his local universe.

101:6.6 (1112.2) With man, the eventual fusion and resultant oneness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 the personality synthesis of man and the essence of God — constitute him, in potential, a living part of the Supreme and insure for such a onetime mortal being the eternal birthright of the endless pursuit of finality of universe service for and with the Supreme.

101:6.7 (1112.3) Revelation teaches mortal man that, to start such a magnificent and intriguing adventure through space by means of the progression of time, he should begin by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to idea-decisions; next, mandate wisdom to labor unremittingly at its noble task of transforming self-possessed ideas into increasingly practical but nonetheless supernal ideals, even those concepts which are so reasonable as ideas and so logical as ideals that the Adjuster dares so to combine and spiritize them as to render them available for such association in the finite mind as will constitute them the actual human complement thus made ready for the action of the Truth Spirit of the Sons, the time-space manifestations of Paradise truth — universal truth. The co-ordination of idea-decisions, logical ideals, and divine truth constitutes the possession of a righteous character, the prerequisite for mortal admission to the ever-expanding and increasingly spiritual realities of the morontia worlds.

101:6.8 (1112.4) The teachings of Jesus constituted the first Urantian religion which so fully embraced a harmonious co-ordination of knowledge, wisdom, faith, truth, and love as completely and simultaneously to provide temporal tranquillity, intellectual certainty, moral enlightenment, philosophic stability, ethical sensitivity, God-consciousness, and the positive assurance of personal survival. The faith of Jesus pointed the way to finality of human salvation, to the ultimate of mortal universe attainment, since it provided for:

101:6.9 (1112.5) 1. Salvation from material fetters in the personal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who is spirit.

101:6.10 (1112.6) 2. Salvation from intellectual bondage: man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3. 영적 무지로부터 구원됨, 즉 필사 존재들의 우애{友愛}를 인간이 깨닫고, 모든 우주 피조물이 형제관계인 것을 모른시아적으로 자각함; 영적 실체를 봉사함으로 발견하고, 영 가치기준이 선함을 섬김으로 드러냄.

4. 우주의 여러 영 수준을 달성함으로, 그리고 **하보나**의 조화와 **낙원**의 완전성을 결국 깨달음으로, 자아의 미완성으로부터 구원됨.

5. 자아로부터의 구원, 즉 **지존자** 정신의 시공 우주 수준에 도달함으로, 그리고 자아_의식하는 모든 다른 존재의 달성과 조화함으로, 자아_의식의 한계로부터 해방됨.

6. 시간으로부터의 구원,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을 성취함.

7. 유한으로부터의 구원, 즉 **지존자**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격**과 완전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피조물은 유한절대의 완결성취자_이 후 수준에서 초월적으로 **궁극자**를 발견하려고 애씀.

일곱 가지로 구성된 그런 구원은,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 체험의 실현을 완료하고 완성하는 것에 상당한다. 그리고 가능성 면에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종교 체험에서 신앙의 실체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의 신앙이, 심지어 근본원리를 초월하는 실체들로부터 자양분을 받았고, 그 실체들을 드러냈기 때문이며; **예수**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 걸로 나타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주의 절대 상태에 접근했다.

필사적 사람은, **예수**의 신앙을 사유{私有}함으로써, 시간세계에서 영원성 실체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예수**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최종적 아버지**를 발견했으며, **아버지**를 발견하는 바로 이 체험을 따라서, 육체 속에서 필사 인생을 사는 형제들이 자신을 좇아올 수 있게 했다. **예수**께서 당시에 했듯이, 그들도 자신의 현재 상태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 체험에서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결과로 새로운 여러 가능성이 **네바돈** 우주에서 실현됐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는, 만유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성의 길을 새롭게 비추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공간의 여러 행성에서 사는 첫 생애에서, 심지어 물질적인 살과 피로 구성된 필사자도 거쳐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는 신성한 유산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 유산은 요청만 하면 사람의 것이 되리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다. 인류가, 즉 신을 모시는 인류가 겪는 신앙 체험의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

shall set him free.

101:6.11 (1112.7) 3. Salvation from spiritual blindness, the human realization of the fraternity of mortal beings and the morontian awareness of the brotherhood of all universe creatures; the service-discovery of spiritual reality and the ministry-revelation of the goodness of spirit values.

101:6.12 (1113.1) 4. Salvation from incompleteness of self through the attainment of the spirit levels of the universe and through the eventual realization of the harmony of Havona and the perfection of Paradise.

101:6.13 (1113.2) 5. Salvation from self, deliverance from the limitations of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attainment of the cosmic levels of the Supreme mind and by co-ordination with the attainments of all other self-conscious beings.

101:6.14 (1113.3) 6. Salvation from time, the achievement of an eternal life of unending progression in God-recognition and God-service.

101:6.15 (1113.4) 7. Salvation from the finite, the perfected oneness with Deity in and through the Supreme by which the creature attempts the transcendental discovery of the Ultimate on the postfinaliter levels of the absonite.

101:6.16 (1113.5) Such a sevenfold salvation is the equivalent of the completeness and perfec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te exper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this, in potential, is contained within the reality of the faith of the human experience of religion. And it can be so contained since the faith of Jesus was nourished by, and was revelatory of, even realities beyond the ultimate; the faith of Jesus approached the status of a universe absolute in so far as such is possible of manifestation in the evolving cosmos of time and space.

101:6.17 (1113.6)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the faith of Jesus, mortal man can foretaste in time the realities of eternity. Jesus made the discovery, in human experience, of the Final Father, and his brothers in the flesh of mortal life can follow him along this same experience of Father discovery. They can even attain, as they are, the same satisfaction in this experience with the Father as did Jesus as he was. New potentials were actualiz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consequent upon the terminal bestowal of Michael, and one of these was the new illumination of the path of eternity that leads to the Father of all, and which can be traversed even by the mortals of material flesh and blood in the initial life on the planets of space. Jesus was and is the new and living way whereby man can come into the divine inheritance which the Father has decreed shall be his for but the asking. In Jesus there is abundantly demonstrated both the beginnings and endings of

the faith experience of humanity, even of divine humanity.

7.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

관념은 행동을 위한 이론적 계획일 뿐인 반면, 명확한 결정은 인가(認可)된 행동 계획이다. 고정관념은 인가를 거치지 않고 받아들인 행동 계획이다.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각자의 내적(內的) 체험 및 환경 체험 양쪽에서 얻는다. 사람이 처한 시대와 장소에서, 사회적 신분, 경제적 조건, 교육 기회, 도덕적 경향, 제도의 영향, 정치적 발전, 종족의 경향, 및 종교적 교훈은 모두,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타고난 기질과 지적 소질까지도, 종교 철학의 원형(原型)을 뚜렷이 결정짓는다. 직업, 결혼, 및 혈족 관계는 모두, 사람의 개인 생활 기준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에 관한 철학은, 관념과 실험적 생활이 모두 동역자들을 훑내 내리는 경향에 따라서 변경되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본적 성장으로부터 진화한다. 철학적 결론의 건전성은, 목적에 대한 민감성 및 평가의 정확성, 그리고 관련된 예리하고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사고(思考)에 달려 있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철학적 사고를 결코 성취할 수 없으며; 새로운 수준의 체험을 시작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적 생활 분야의 탐구를 시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체계의 가치기준이 곧 성립되며; 원칙과 표준의 새로운 공식화가 성취되며; 기질과 이상(理想)이 다시 모양을 갖추며; 인격있는 **하나님** 개념이 이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장되는 개념이 뒤따른다.

종교의 생활 철학과 비종교의 생활 철학 사이의 큰 차이는, 인정된 가치기준의 본성과 수준에 그리고 충성심의 대상에 있다. 종교 철학의 진화에는 네 국면이 있다: 그런 체험은 전통과 권위에 굴복하기로 체념하면서 단지 순응하는 체험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철학은 단지 일상의 삶을 안정 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에서 사소한 달성에 만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런 우발적 수준에서 일찍부터 성장이 멈춘다. 그런 필사자는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셋째 집단은, 논리로 지적 수준까지 진보하지만, 문화에 노예 상태가 된 결과로 거기서 침체에 빠진다. 문화적 속박의 무자비한 손아귀에 그토록 견고히 붙들려 있는 대단한 지식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문화적 속박을, 과학이라고 거짓되게 부르는 유물론적 속박으로 대체시키는 자들을 보는 것도, 똑같이 애처로운 일이다. 철학의 넷째 수준은 모든 틀에 박히고 전통적인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해방을 달성하고, 정직하게,

7.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101:7.1 (1113.7) An idea is only a theoretical plan for action, while a positive decision is a validated plan of action. A stereotype is a plan of action accepted without validation. The materials out of which to build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are derived from both the inner and the environmental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The social status, economic conditions, educational opportunities, moral trends, institutional influences, political developments, racial tendencies, and the religious teachings of one's time and place all become factors in the formulation of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Even the inherent temperament and intellectual bent markedly determine the pattern of religious philosophy. Vocation, marriage, and kindred all influence the evolution of one's personal standards of life.

101:7.2 (1113.8) A philosophy of religion evolves out of a basic growth of ideas plus experimental living as both are modified by the tendency to imitate associates. The soundness of philosophic conclusions depends on keen, honest, and discriminating thinking in connection with sensitivity to meanings and accuracy of evaluation. Moral cowards never achieve high planes of philosophic thinking; it requires courage to invade new levels of experience and to attempt the exploration of unknown realms of intellectual living.

101:7.3 (1114.1) Presently new systems of values come into existence; new formulations of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achieved; habits and ideals are reshaped; some idea of a personal God is attained, followed by enlarging concepts of relationship thereto.

101:7.4 (1114.2)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a religious and a nonreligious philosophy of living consists in the nature and level of recognized values and in the object of loyalties. There are four phases in the evolution of religious philosophy: Such an experience may become merely conformative, resigned to submission to tradition and authority. Or it may be satisfied with slight attainments, just enough to stabilize the daily living, and therefore becomes early arrested on such an adventitious level. Such mortals believe in letting well enough alone. A third group progress to the level of logical intellectuality but there stagnate in consequence of cultural slavery. It is indeed pitiful to behold giant intellects held so securely within the cruel grasp of cultural bondage. It is equally pathetic to observe those who trade their cultural bondage for the materialistic fetters of a science, falsely so called. The fourth level of philosophy attains freedom from all conventional

충성되게, 용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감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어떤 종교 철학이든지 그 까다로운 시험은, 물질 세계의 실체와 영적 세계의 실체 사이를 구별 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지적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에 봉사할 때 그 실체들이 하나 된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건전한 종교 철학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순전히 이적(異蹟)을 바라는 심미적 중파를 종교 대용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학은, 대체로 양심을 일깨우는 옛 이야기였던 원시 종교를, 시공우주 실체의 높아지는 가치를 맞보는 생생한 체험으로 변형시킨다.

8. 신앙과 믿음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양식을 실현할 때, 믿음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다. 어떤 가르침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 그것은 믿음에 불과하다. 또한 확신이나 신념도 신앙이 아니다. 정신 상태는 생활 방식을 실제로 지배할 때에만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다. 신앙은 개인적인 참된 종교 체험의 생생한 속성이다. 사람은 진리를 믿고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선함을 숭상하지만, 그것들을 경배하지는 않으며; 그런 구원하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의인화된 분이고, 무한히 그 이상{以上} 이시다.

믿음은 항상 제한하고 구속하며; 신앙은 확장하고 풀어준다. 믿음은 고정시키지만, 신앙은 해방시킨다. 그러나 살아있는 종교적 신앙은 고귀한 믿음들의 연합 이상{以上}이며; 고양된 철학 체계보다 크며; 영적 의미, 신성한 이상{理想}, 그리고 최상의 가치기준과 관련된 생생한 체험이며,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섬긴다. 믿음은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이다. 신학적 믿음을 한 집단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신앙은 오직 종교인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신앙이 감히 현실을 부정하고 추종자에게 추측된 지식을 수여할 때, 신앙은 신뢰를 저버렸다. 신앙이 지적 성실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최상의 가치기준과 신성한 이상{理想}에 바치는 충성심을 헐뜯을 때, 그 신앙은 배신했다. 신앙은 필사자의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은 편협함이나 박해 또는 용졸함을 조장하지 않는다.

신앙은 창조적 상상력을 속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로 얻은 발견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보이지도 않는다. 신앙은 종교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용맹스럽게 황금률을 실천하라고 종교인에게 강요한다. 신앙의 열정은 지식에 의거하며, 신앙의 분투는 장엄한 평안으로 이끄는 전

and traditional handicaps and dares to think, act, and live honestly, loyally, fearlessly, and truthfully.

101:7.5 (1114.3) The acid test for any religious philosophy consists in whether or not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realities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while at the same moment recognizing their unification in intellectual striving and in social serving. A sound religious philosophy does not confound the things of God with the things of Caesar. Neither does it recognize the aesthetic cult of pure wonder as a substitute for religion.

101:7.6 (1114.4) Philosophy transforms that primitive religion which was largely a fairy tale of conscience into a living experience in the ascending values of cosmic reality.

8. FAITH AND BELIEF

101:8.1 (1114.5) Belief has attained the level of faith when it motivates life and shapes the mode of living. The acceptance of a teaching as true is not faith; that is mere belief. Neither is certainty nor conviction faith. A state of mind attains to faith levels only when it actually dominates the mode of living. Faith is a living attribute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ne believes truth, admires beauty, and reverences goodness, but does not worship them; such an attitude of saving faith is centered on God alone, who is all of these personified and infinitely more.

101:8.2 (1114.6) Belief is always limiting and binding; faith is expanding and releasing. Belief fixates, faith liberates. But living religious faith is more than the association of noble beliefs; it is more than an exalted system of philosophy; it is a living experience concerned with spiritual meanings, divine ideals, and supreme values; it is God-knowing and man-serving. Beliefs may become group possessions, but faith must be personal. Theologic beliefs can be suggested to a group, but faith can rise up only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religionist.

101:8.3 (1114.7) Faith has falsified its trust when it presumes to deny realities and to confer upon its devotees assumed knowledge. Faith is a traitor when it fosters betrayal of intellectual integrity and belittles loyalty to supreme values and divine ideals. Faith never shuns the problem-solving duty of mortal living. Living faith does not foster bigotry, persecution, or intolerance.

101:8.4 (1115.1) Faith does not shackle the creative imagination, neither does it maintain an unreasoning prejudice toward the discoveri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aith vitalizes religion and constrains the religionist heroically to live the golden rule. The zeal of faith is according to

주곡이다.

9. 종교와 도덕성

이전의 진화 종교가 창출하고 육성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의무의 요구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교에서 공언{公言}된 어떤 계시든지 믿을 만하다고 여길 수 없다. 계시는 진화된 종교의 윤리적 시야를 반드시 확장시키며, 한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의 도덕적 책무를, 일제히 그리고 반드시 확대시킨다.

너희가 사람의 원시 종교에 대해서 (또는 원시인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할 때, 너희는 그런 미개인의 계몽된 정도와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종교 체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너 자신의 지식 및 진리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모론시아 실체는, 사람의 가장 높은 윤리 및 도덕 개념, 즉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우주의 가장 심오한 실체에 대한 그의 가장 고상한 해석을 구성하는데, 참 종교는, 이 모론시아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옳지 못하리라고 그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혼 속에 있는 장엄하고 심원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런 종교는, 다만 영적 의식{意識}이 내리는 최고의 명령에 지직 충성을 바치는 체험이다.

아름다움의 추구는, 오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고 도덕 개념을 풍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일부분이다. 예술은, 높은 영적 동기로부터 도출된 목적으로 확산될 때에만 종교적이다.

문명화된 사람의 계몽된 영적 의식은, 어떤 특정한 지직 믿음, 또는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생활 방식에 관여하기보다, 오히려 생활에 관한 진실, 즉 필사자 실존에서 항상 반복되는 상황에 반응하는, 선하고 올바른 기법의 발견에 관여한다. 도덕 의식은, 일상의 행위를 통제하고 안내하면서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의무가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새로 나타나는 그 모론시아 가치기준을 인간이 인식하고 자각하는 데 적용되는 이름일 뿐이다.

종교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종교의 본성과 기능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제 징후가 있다:

1. 종교의 영적 충동과 철학적 압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판단을 직접 밖으로 향하게 해서, 그의 동료의 용무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향--곧 종교의 윤리적 반응--이 있다.

knowledge, and its strivings are the preludes to sublime peace.

9. RELIGION AND MORALITY

101:9.1 (1115.2) No professed revelation of religion could be regarded as authentic if it failed to recognize the duty demands of ethical obligation which had been created and fostered by preceding evolutionary religion. Revelation unfailingly enlarges the ethical horizon of evolved religion while it simultaneously and unfailingly expands the moral obligations of all prior revelations.

101:9.2 (1115.3) When you presume to sit in critical judgment on the primitive religion of man (or on the religion of primitive man), you should remember to judge such savages and to evaluate their religious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ir enlightenment and status of conscience. Do not make the mistake of judging another's religion by your own standards of knowledge and truth.

101:9.3 (1115.4) True religion is that sublime and profound conviction within the soul which compellingly admonishes man that it would be wrong for him not to believe in those morontial realities which constitute his highest ethical and moral concepts, his highest interpretation of life's greatest values and the universe's deepest realities. And such a religion is simply the experience of yielding intellectual loyalty to the highest dictates of spiritual consciousness.

101:9.4 (1115.5) The search for beauty is a part of religion only in so far as it is ethical and to the extent that it enriches the concept of the moral. Art is only religious when it becomes diffused with purpose which has been derived from high spiritual motivation.

101:9.5 (1115.6) The enlightened spiritual consciousness of civilized man is not concerned so much with some specific intellectual belief or with any one particular mode of living as with discovering the truth of living, the good and right technique of reacting to the ever-recurring situations of mortal existence. Moral consciousness is just a name applied to the human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those ethical and emerging morontial values which duty demands that man shall abide by in the day-by-day control and guidance of conduct.

101:9.6 (1115.7) Though recognizing that religion is imperfect, there are at least two practical manifestations of its nature and function:

101:9.7 (1115.8) 1. The spiritual urge and philosophic pressure of religion tend to cause man to project his estimation of moral values directly outward into the affairs of his fellows — the ethical reaction of religion.

2. 종교는 인간 정신이 신성한 실체를 영적으로 의식(意識)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의식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여러 기존 개념에 기초하며, 그것으로부터 신앙을 통해서 도출되고 영적 가치가 있는 첨가된 개념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하여 종교는 필사자의 직무를 검열하며, 이것은 실제로, 시간세계의 증진된 실체와 더 영속하는 영원성에 속하는 실체들을 믿는, 일종의 영화롭게 된 도덕적 신뢰와 확신이다.

신앙은, 도덕적 의식, 그리고 영속하는 실체에 대한 영적 개념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종교는, 구원하는 기법, 즉 점진적인 모론시아 변화로,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현세의 자연 세계의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영적 세계의 숭고한 실체에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10. 사람을 해방시키는 종교

지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자연에서 발생된 존재, 즉 물질 우주의 한 부분임을 알며; 마찬가지로, 에너지인 우주에서, 엄밀한 수준의 움직임과 균형 상태 속에서는 개별 인격이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또한 사람은 물리적 인과법칙의 고찰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식별할 수도 전혀 없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관념적인 시공우주의 일부분임을 자각하지만, 개념이 필사자의 수명보다 길게 지속되더라도, 그 개념에 내재된 어떤 것도, 생각하는 그 인격체의 인격적 생존을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논리와 이성의 가능성을 다 소모해도, 논리를 따르는 자 또는 추론하는 자에게는, 인격이 생존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물질 수준의 법칙은, 인과관계의 연속성, 즉 선행(先行)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규정하며; 정신 수준은 관념 작용의 연속성의 영구 보존, 즉 선재(先在)하는 생각들로부터 개념의 잠재력의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주에서 이 두 수준 가운데 어떤 것도, 탐구하는 필사자에게, 신분의 불공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주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불안, 즉 제한된 생명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소멸될 운명을 가진 일시적 인격이라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직 영적 통찰력에 이르게 하는 모론시아의 길을 통해서, 사람은 우주에서 자신의 필사자 신분 속에 타고난 족쇄를 언젠가 깨뜨릴 수 있다. 에너지와 정신은 **낙원**과 **신격**에게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지만, 사람의 에너지 재능도 정신 재능도, 그런 **낙원 신격**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영적 의미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영적 의미에서, **낙원 아버지**가 현재, 사람에게 자질을 부여하고 내주하기 때문에

101:9.8 (1115.9) 2. Religion creates for the human mind a spiritualized consciousness of divine reality based on, and by faith derived from, antecedent concepts of moral values and co-ordinated with superimposed concepts of spiritual values. Religion thereby becomes a censor of mortal affairs, a form of glorified moral trust and confidence in reality, the enhanced realities of time and the more enduring realities of eternity.

101:9.9 (1115.1) Faith becomes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consciousness and the spiritual concept of enduring reality. Religion becomes the avenue of man's escape from the material limitations of the temporal and natural world to the supernal realities of the eternal and spiritual world by and through the technique of salvation, the progressive morontia transformation.

10. RELIGION AS MAN'S LIBERATOR

101:10.1 (1116.2) Intelligent man knows that he is a child of nature, a part of the material universe; he likewise discerns no survival of individual personality in the motions and tensions of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energy universe. Nor can man ever discern spiritual real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physical causes and effects.

101:10.2 (1116.3) A human being is also aware that he is a part of the ideational cosmos, but though concept may endure beyond a mortal life span, there is nothing inherent in concept which indicates the personal survival of the conceiving personality. Nor will the exhaustion of the possibilities of logic and reason ever reveal to the logician or to the reasoner the eternal truth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101:10.3 (1116.4) The material level of law provides for causality continuity, the unending response of effect to antecedent action; the mind level suggests the perpetuation of ideational continuity, the unceasing flow of conceptual potentiality from pre-existent conceptions. But neither of these levels of the universe discloses to the inquiring mortal an avenue of escape from partiality of status and from the intolerable suspense of being a transient reality in the universe, a temporal personality doomed to be extinguished upon the exhaustion of the limited life energies.

101:10.4 (1116.5) It is only through the morontial avenue leading to spiritual insight that man can ever break the fetters inherent in his mortal status in the universe. Energy and mind do lead back to Paradise and Deity, but neither the energy endowment nor the mind endowment of man proceeds directly from such Paradise Deity. Only in the spiritual sense is man a child of God. And this is true because it is only in the spiritual sense

맞는 말이다. 인류는, 종교 체험이라는 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경우 외에는, 결코 신성{神性}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막힌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죽음이 존재하는 물질 영역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 영역으로 안전하게 안내받을 합리적 희망을, 사람에게 제공한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불변성과 철학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 즉 필사 존재를 신성한 존재와, 부분적 존재를 완전한 존재와, 사람을 **하나님**과 융합시킴으로써, 인간 생애를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화 된 것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현실성을 부여받는 것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다.

신성{神性}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명도 논리적 증명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종교 체험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하나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 가치기준의 확실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의 수준에서 종교적 체험이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가능한 접근법이다. 그런 신앙은 물질세계의 기계 같은 쇠고랑으로부터, 그리고 지적 세계의 불완전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며; 신앙만이, 개별 인격이 계속해서 생존하는 것에 관해 필사자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는, 유일하게 찾아낸 해결책이다. 사랑, 법칙, 통일, 및 점진적 **신격** 달성이 있는 보편적 창조에서, 신앙은 완성된 실체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행증{通行證}이다.

종교는, 사람이 이상주의로 고립된 느낌 또는 영적으로 외로운 느낌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써, 즉 새롭고 의미심장한 우주의 한 시민으로서 해방시킨다. 종교는, 혼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흐릿하게 보이는 정의의 빛을 따를 때,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무한자**의 계획과 **영원자**의 목적과 한 편이 된다는 확신을 준다. 해방된 그런 혼은, 이 새로운 우주, 즉 자신의 우주에서 즉시 평안한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네가 그런 신앙의 변환을 체험할 때, 너는 더 이상 엄밀한 시공우주에 맹종하는 노예가 아니며, 오히려 **만유의 아버지**의 해방되고 의지를 지닌 아들이다. 그런 해방된 아들은, 일시적 실존의 종말이라는 냉혹한 운명에 대항해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으며; 더 이상 모든 자연 현상, 즉 자기에게 절망적으로 대항하는 불평등과 싸우지 않으며; 희망 없는 환상을 신뢰하거나, 공상적인 어떤 오류에 신앙을 고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무력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제는 오히려, 실존의 부분적인 그림자에 대해서 실체가 승리하는 싸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that man is at present endowed and indwelt by the Paradise Father. Mankind can never discover divinity except through the avenue of religious experience and by the exercise of true faith. The faith acceptance of the truth of God enables man to escape from the circumscribed confines of material limitations and affords him a rational hope of achieving safe conduct from the material realm, whereon is death, to the spiritual realm, wherein is life eternal.

101:10.5 (1116.6) The purpose of religion is not to satisfy curiosity about God but rather to afford intellectual constancy and philosophic security, to stabilize and enrich human living by blending the mortal with the divine, the partial with the perfect, man and God. It is through religious experience that man's concepts of ideality are endowed with reality.

101:10.6 (1116.7) Never can there be either scientific or logical proofs of divinity. Reason alone can never validate the values and goodnesses of religious experience. But it will always remain true: Whosoever wills to do the will of God shall comprehend the validity of spiritual values. This is the nearest approach that can be made on the mortal level to offering proofs of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Such faith affords the only escape from the mechanical clutch of the material world and from the error distortion of the incompleteness of the intellectual world; it is the only discovered solution to the impasse in mortal thinking regarding the continuing survival of the individual personality. It is the only passport to completion of reality and to eternity of life in a universal creation of love, law, unity, and progressive Deity attainment.

101:10.7 (1117.1) Religion effectually cures man's sense of idealistic isolation or spiritual loneliness; it enfranchises the believer as a son of God, a citizen of a new and meaningful universe. Religion assures man that, in following the gleam of righteousness discernible in his soul, he is thereby identifying himself with the plan of the Infinite and the purpose of the Eternal. Such a liberated soul immediately begins to feel at home in this new universe, his universe.

101:10.8 (1117.2) When you experience such a transformation of faith, you are no longer a slavish part of the mathematical cosmos but rather a liberated volitional son of the Universal Father. No longer is such a liberated son fighting alone against the inexorable doom of the termination of temporal existence; no longer does he combat all nature, with the odds hopelessly against him; no longer is he staggered by the paralyzing fear that, perchance, he has put his trust in a hopeless phantasm or pinned his faith to a fanciful error.

101:10.9 (1117.3) Now, rather, are the sons of God enlisted together in fighting the battle of reality's

함께 지원한다. 마침내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신분을 달성하려는 숭고한 투쟁에서, 거의 제한이 없는 우주의 모든 거룩한 단체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신앙으로 해방된 그런 자녀는, 영원성에 속하는 최상의 세력들 및 신성한 인격체들과 같은 편에서 시간세계의 싸움에 확실하게 지원했으며; 그들이 가는 길에 이제는 천체들도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은, 물질적으로 고립된 불확실성으로부터,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확실성으로 변환됐다. 심지어 시간 자체도, 공간의 움직이는 찬란한 모습 위에 **낙원** 실체들이 던진, 영원 세계의 그림자가 될 뿐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triumph over the partial shadows of existence. At last all creatures become conscious of the fact that God and all the divine hosts of a well-nigh limitless universe are on their side in the supernal struggle to attain eternity of life and divinity of status. Such faith-liberated sons have certainly enlisted in the struggles of time on the side of the supreme forces and divine personalities of eternity; even the stars in their courses are now doing battle for them; at last they gaze upon the universe from within, from God's viewpoint, and all is transformed from the uncertainties of material isolation to the sureties of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Even time itself becomes but the shadow of eternity cast by Paradise realities upon the moving panoply of space.

101:10.10 (1117.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adon.]

제102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 101

유란시아 책

10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2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섹션

소개

1. 신앙의 확신
2. 종교와 실체
3. 지식, 지혜, 및 통찰력
4. 체험이라는 사실
5. 의도적 잠재력의 우월성
6.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7. 신성한 존재에 대한 확신
8. 종교의 징표

소개

믿음 없는 물질주의자에게, 사람은 진화해서 우연히 생긴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생존할 것이라는 희망은, 필사자가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에 속은 것이며; 그의 두려움, 사랑, 열망, 및 믿음은, 생명 없는 어떤 물질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에서 생긴 반응에 불과하다. 어떤 에너지 발산이나 신뢰 표명으로도, 필사자를 무덤 저 편으로 데려갈 수 없다. 최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헌신적 수고와 영감(靈感)을 불러일으키는 재능도, 죽음 후에 소멸될 운명에 처해있고, 죽음은 영원한 망각과 혼의 사멸(死滅)이라는 길고 고독한 밤이다. 필사자 실존이 현세의 태양 아래서 영위한 삶과 수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절망만이 인간의 유일한 보상이다. 매일의 삶이, 무자비한 멸망의 손아귀를 서서히 단단히 조이며, 냉담하고 혹독한 물질 우주는, 이 멸망이 인간의 소망 중에 아름답고 고귀하며 고상하고 유익한 모든 것에 최고의 모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의 종말이나 영원한 운명이 아니며; 그런 장면은 영적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복잡한 학문의 혼돈과 왜곡으로 눈먼 채, 물

PAPER 102

THE FOUNDATIONS OF RELIGIOUS
FAITH

SECTIONS

Introduction

1. Assurances of Faith
2. Religion and Reality
3. Knowledge, Wisdom, and Insight
4. The Fact of Experience
5. The Supremacy of Purposive Potential
6. The Certainty of Religious Faith
7. The Certitude of the Divine
8. The Evidences of Religion

INTRODUCTION

^{102:0.1 (1118.1)} TO THE unbelieving materialist, man is simply an evolutionary accident. His hopes of survival are strung on a figment of mortal imagination; his fears, loves, longings, and beliefs are but the reaction of the incidental juxtaposition of certain lifeless atoms of matter. No display of energy nor expression of trust can carry him beyond the grave. The devotional labors and inspirational genius of the best of men are doomed to be extinguished by death, the long and lonely night of eternal oblivion and soul extinction. Nameless despair is man's only reward for living and toiling under the temporal sun of mortal existence. Each day of life slowly and surely tightens the grasp of a pitiless doom which a hostile and relentless universe of matter has decreed shall be the crowning insult to everything in human desire which is beautiful, noble, lofty, and good.

^{102:0.2 (1118.2)} But such is not man's end and eternal destiny; such a vision is but the cry of despair uttered by some wandering soul who has become

질 철학의 기계론적 궤변에 직면해 용감하게 투쟁하는, 소수의 방랑하는 혼이 외친 절망의 함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어둠의 운명과 이런 모든 절망의 숙명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배우지 못한 자의 편에서, 신앙이 한 번 용감하게 손을 뻗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진다.

필사자의 체험에서 인간의 가치 기준이 물질계로부터 영계로, 인간다움으로부터 신성함으로, 시간세계로부터 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사람의 도덕의식이 깨달을 때, 구원하는 이 신앙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잉태된다.

1. 신앙의 확산

사람의 원시적이고 진화적인 의무 감각이, 제시되는 영원한 실체를 믿는 더 높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교 조율사**의 업무가 설명한다. 최상의 달성에 이르는 신앙 경로를 납득하기 위한 수용력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완전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신성한 뜻을 선택한다면, 그는 진리의 길을 알게 된다. “인간적인 것은 이해해야 사랑을 받지만, 신성한 것은 사랑해야 이해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옳다. 그러나 정직한 의심과 진지한 질문은 죄가 아니며; 그런 태도는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진보하는 여행에서, 단순히 지체시킬 뿐이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는 사람이 하늘로 상승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보장하지만, 진보는, 온전히 성장한 어른이 튼튼하고 자신감 있는 신앙을 활기차게 실행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과학의 논리는 시간세계에서 관측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며; 종교에서 신앙은 영원 세계의 영계 목표에 근거해서 주장한다. 지식과 이성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종교적 통찰력과 영적 변화를 통해서 신앙이 완성하도록 허용하려고, 참 지혜가 우리에게 훈계한다.

반역으로 격리됐기 때문에, **유란시아**에 주어진 진리 계시는 모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우주론의 주장과 너무 종종 혼동돼 왔다. 진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물리적 세계에 관한 관련된 교훈은 해마다 날마다 바뀐다. 영원한 진리는, 물질세계와 관련된 진부한 관념과 함께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과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종교를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과학에서 확실성은 전적으로 지능에서 생겨나며; 종교에서 확신은 **전체 인격**의 바로 그 기초에서 솟아난다. 과학은, 정신의 이해력에 호소하

lost in spiritual darkness, and who bravely struggles on in the face of the mechanistic sophistries of a material philosophy, blinded by the confusion and distortion of a complex learning. And all this doom of darkness and all this destiny of despair are forever dispelled by one brave stretch of faith on the part of the most humble and unlearned of God's children on earth.

102:0.3 (1118.3) This saving faith has its birth in the human heart when the moral consciousness of man realizes that human values may be translated in mortal experience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from time to eternity.

1. ASSURANCES OF FAITH

102:1.1 (1118.4) The work of the Thought Adjuster constitutes the explanation of the translation of man's primitive and evolutionary sense of duty into that higher and more certain faith in the eternal realities of revelation. There must be perfection hunger in man's heart to insure capacity for comprehending the faith paths to supreme attainment. If any man chooses to do the divine will, he shall know the way of truth. It is literally true, "Human things must be known in order to be loved, but divine things must be loved in order to be known." But honest doubts and sincere questionings are not sin; such attitudes merely spell delay in the progressive journey toward perfection attainment. Childlike trust secures man's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ly ascent, but progress is wholly dependent on the vigorous exercise of the robust and confident faith of the full-grown man.

102:1.2 (1119.1) The reason of science is based on the observable facts of time; the faith of religion argues from the spirit program of eternity. What knowledge and reason cannot do for us, true wisdom admonishes us to allow faith to accomplish through religious insight and spiritual transformation.

102:1.3 (1119.2) Owing to the isolation of rebellion, the revelation of truth on Urantia has all too often been mixed up with the statements of partial and transient cosmologies. Truth remains unchang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the associated teachings about the physical world vary from day to day and from year to year. Eternal truth should not be slighted because it chances to be found in company with obsolete ideas regarding the material world. The more of science you know, the less sure you can be; the more of religion you have, the more certain you are.

102:1.4 (1119.3) The certainties of science proceed entirely from the intellect; the certitudes of religion spring from the very foundations of the *entire*

며;종교는, 몸, 정신, 영의 충성과 헌신에, 심지어 전{全} 인격에 호소한다.

하나님은 가장 실제적이고 절대적이므로, 어떤 물질 증명 부호든지, 또는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징후든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무한한 실체의 신성한 현시에 우리가 몸소 참여하는 것에 기초한다.

내주하는 **사교 조율사**는, 광범한 호기심과 더불어 완전성을 추구하는 참된 갈망을 인간의 혼에 반드시 발생시키는데, 이 호기심은, 그 **조율사**의 신성한 근원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 인간의 갈급한 혼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깨달음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높고 완전한 도덕적 인격체 이상의 어떤 분이 되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갈급하고 제한된 개념 속에서, 그보다 못한 어떤 분도 되실 수 없다.

2. 종교와 실체

주의 깊은 정신과 식별력 있는 혼은, 동료의 삶에서 종교를 발견할 때 그 종교를 알아본다. 종교는 어떤 정의{定義}를 내릴 필요가 없으며;우리는 모두 종교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및 영적 열매를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인간 종족의 자산{資產}이라는 사실에서 자라나며;문화의 소산이 아니다. 정말로, 사람이 종교를 인지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다우며, 따라서 무지에 속박되고, 미신에 노예가 되고, 꾀변에 속으며, 잘못된 철학에 미혹되기 쉽다.

진심에서 우러난 종교적 확신의 독특한 특색 가운데 하나는, 그 주장이 절대적이고 그 태도가 완고함에도, 그것이 표현하는 정신이 너무나 침착하고 조절돼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중심으로 칭찬한다는 인상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 체험에서 얻는 지혜는, 인간적으로 독창적인 동시에 **조율사**의 유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효력은, 개인의 사사로운 특권의 산물{產物}이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지혜의 영속적인 근원과 사람의 숭고한 동반자 관계가 맺는 결실이다.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종교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든 계몽된 필자에게 어쩔 수 없이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종교 체험을 확인하고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마치 이미 **영원자**의 현존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믿는 사람은, 마치 불멸성이 이미 자신의 소유라든 듯이 이 현세의 삶에 반응한

personality. Science appeal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ind; religion appeals to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body, mind, and spirit, even to the whole personality.

102:1.5 (1119.4) God is so all real and absolute that no material sign of proof or no demonstration of so-called miracle may be offered in testimony of his reality. Always will we know him because we trust him, and our belief in him is wholly based on our personal participation in the divine manifestations of his infinite reality.

102:1.6 (1119.5)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unfailingly arouses in man's soul a true and searching hunger for perfection together with a far-reaching curiosity which can be adequately satisfied only by communion with God, the divine source of that Adjuster. The hungry soul of man refuses to be satisfied with anything less than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living God. Whatever more God may be than a high and perfect moral personality, he cannot, in our hungry and finite concept, be anything less.

2. RELIGION AND REALITY

102:2.1 (1119.6) Observing minds and discriminating souls know religion when they find it in the lives of their fellows. Religion requires no definition; we all know its social,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fruits. And this all grows out of the fact that religion is the property of the human race; it is not a child of culture. True, one's perception of religion is still human and therefore subject to the bondage of ignorance, the slavery of superstition, the deceptions of sophistication, and the delusions of false philosophy.

102:2.2 (1119.7) One of the characteristic peculiarities of genuine religious assurance is that, notwithstanding the absoluteness of its affirmations and the stanchness of its attitude, the spirit of its expression is so poised and tempered that it never conveys the slightest impression of self-assertion or egoistic exaltation. The wisdom of religious experience is something of a paradox in that it is both humanly original and Adjuster derivative. Religious force is not the product of the individual's personal prerogatives but rather the outworking of that sublime partnership of man and the everlasting source of all wisdom. Thus do the words and acts of true and undefiled religion become compellingly authoritative for all enlightened mortals.

102:2.3 (1119.8)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of a religious experience, but it is not difficult to observe that such religious practitioners live and carry on as if already in the presence of the Eternal. Believers react to this temporal life as

다. 그런 필사자의 생활에는, 오직 세상의 지혜만 흡수해온 동료들의 생활로부터 그를 영원히 구분시키는, 정당한 독창력과 자발적 표현이 있다. 종교인은, 현세의 풍조에 내재하는 흥망으로 인해 서두르는, 고달픔과 고통스런 압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나서 사는 듯이 보이며; 생리학, 심리학, 및 사회학의 법칙이 설명하지 못하는, 안정된 인간성과 평온한 성품을 나타낸다.

시간은 지식을 얻는 데 변함없는 요소이며;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요소, 즉 종교 체험의 모든 국면에서 분명히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에도, 종교는 그 재능을 즉시 쓸모 있게 만든다. 지식은 영원한 탐구이며, 너희는 항상 배우고 있지만, 절대 진리를 충분히 아는 데까지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지식만 갖고는 절대 확실성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근사치의 가능성이 증가될 뿐이지만; 영적 조명을 받는 종교적 혼은 *아는데, 지금 안다*. 그럼에도 이 심원하고 긍정적인 확신은, 그런 건전한 정신의 종교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혜의 진보에서 생기는 기복(起伏)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덜 느끼도록 만들지 않는데, 느리게 움직이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 지혜의 물질적 목적에 구속받는다.

심지어 과학이 발견한 것들조차, 그것들을 해명하고 상호 연결하기 전에는, 즉 정신의 사고(思考) 흐름 속에서 순회함으로써, 연관된 여러 사실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전에는, 인간이 체험하는 의식 속에서 정말로 *실제적이지* 않다. 필사적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조차, 정신 수준에서, 즉 정신이 심리적으 기록한 견지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사람이 우주에 대해 매우 통합된 해석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에서 이 에너지의 통일을 자신의 종교 체험에서 영(靈)의 통일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신은 통일돼 있으며; 필사자의 의식은 정신 수준에서 존속하고 정신 재능의 눈을 통해 우주의 실체를 감지한다. 정신의 전망은, 실체의 근원인 **제1 근원 및 중심**의 실존적 통일을 초래하지 못하겠지만, 에너지와 정신과 영이 **지존하신 분** 안에서, 그리고 **지존하신 분**으로서, 체험으로 통합됨을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고,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사실, 지적인 의미, 및 영적 가치기준을 그런 정신이 확고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정신은 실체의 다양성을 이렇게 통합하는 데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직 세 가지 기능적 실체가 하나로 조화될 때에만 통일이 있고, 오직 통일된 가운데서만 시공우주 불변성과 일관성을 깨닫는 인격체가 만족한다.

통일성은 인간의 체험에서 철학을 통해서 가장 잘 발견된다. 그리고 철학 사고의 본론은 반드시 물질적 사실에 항상 기초해야 하지만, 참된 철학 원동력(原動力)의 혼 및 에너지는 필사자의 영적 통찰력이다.

if immortality already were within their grasp. In the lives of such mortals there is a valid originality and a spontaneity of expression that forever segregate them from those of their fellows who have imbibed only the wisdom of the world. Religionists seem to live in effective emancipation from harrying haste and the painful stress of the vicissitudes inherent in the temporal currents of time; they exhibit a stabilization of personality and a tranquillity of character not explained by the laws of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102:2.4 (1120.1) Time is an invariable element in the attainment of knowledge; religion makes its endowments immediately available, albeit there is the important factor of growth in grace, definite advancement in all phases of religious experience. Knowledge is an eternal quest; always are you learning, but never are you able to arrive at the full knowledge of absolute truth. In knowledge alone there can never be absolute certainty, only increasing probability of approximation; but the religious soul of spiritual illumination *knows*, and knows *now*. And yet this profound and positive certitude does not lead such a sound-minded religionist to take any less interest in the ups and downs of the progress of human wisdom, which is bound up on its material end with the developments of slow-moving science.

102:2.5 (1120.2) Even the discoveries of science are not truly *real* in the consciousness of human experience until they are unraveled and correlated, until their relevant facts actually become *meaning* through encirclement in the thought streams of mind. Mortal man views even his physical environment from the mind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its psychological registry. It is not, therefore, strange that man should place a highly unified interpretation upon the universe and then seek to identify this energy unity of his science with the spirit unity of his religious experience. Mind is unity; mortal consciousness lives on the mind level and perceives the universal realities through the eyes of the mind endowment. The mind perspective will not yield the existential unity of the source of realit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but it can and sometime will portray to man the experiential synthesis of energy, mind, and spirit in and as the Supreme Being. But mind can never succeed in this unification of the diversity of reality unless such mind is firmly aware of material things, intellectual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only in the harmony of the triunity of functional reality is there unity, and only in unity is there the personality satisfaction of the realization of cosmic constancy and consistency.

102:2.6 (1120.3) Unity is best found in human experience through philosophy. And while the body of philosophic thought must ever be founded on material facts, the soul and energy of true philosophic dynamics is mortal spiritual insight.

진화된 사람은 힘든 일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생애 체험에서, 증대되는 종교 체험의 강제적 충동과 밀려오는 요구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것은, 영적 성장, 지적 확장, 사실에 입각한 확대, 그리고 사회 봉사에서 끊임없이 활동함을 의미한다. 매우 활동적인 인물과 상관없는 진짜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나태한 사람은, 진부한 종교 교리와 교의가 마련하는 가짜 피난처로 피신함으로써, 일종의 교묘한 자아_기만으로, 참된 종교 활동의 엄격함에서 벗어나려고 종종 애쓴다. 그러나 참 종교는 살아있다. 종교의 개념을 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영적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관념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지만, 일단 종교가 오직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며; 그저 일종의 인간 철학이 된 것이다.

그 밖에, 불안정하고 거의 혼란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삶의 짜증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길로서 종교의 감상적 관념을 이용하려고 한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어떤 필사자들이, 진화적 삶의 끊임없는 압박에서 피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종교는 가장 가까운 피난처, 즉 탈출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종교의 사명은, 사람이 용감하게 그리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삶의 변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종교는 진화적인 사람의 최상의 재능인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듯이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무튼 신비주의는, 종종 삶에서 도피한 어떤 것인데, 그 도피는 인간 사회 및 교류라는 열린 운동장에서 종교적 인생을 사는, 비교적 더 박찬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환영받는다. 참 종교는 반드시 **행한다**. 사람이 실제로 종교를 가졌을 때, 또는 오히려 종교가 그 사람을 정말로 지배하도록 허용됐을 때, 행위는 종교의 결과가 될 것이다. 종교는, 단지 생각만 하거나 행함 없이 느끼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가 때로는 어리석게 그리고 심지어 비종교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종교는 적어도 **행한다**. 빗나간 종교적 신념은 피로 얼룩진 박해를 가져오지만, 언제나, 종교는 무언가 행하며; 역동적이다!

3. 지식, 지혜, 및 통찰력

지능의 부족이나 교육의 결핍은 더 높은 종교적 달성을 불가피하게 방해하는데, 이것은 영적 본성이 힘을 빼앗긴 그런 환경이, 종교가 과학 지식의 세계와 철학적으로 접촉하는 주요 경로를 종교로부터 강탈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지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이 요소가 과도하게 발달하면, 마찬가지로 종종 심하게 방해가 되고 곤란해진다. 종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역설적 필요 아래서 계속 수고해야 하는데: 즉 모든 사고의 영적 실용

102:2.7 (1120.4) Evolutionary man does not naturally relish hard work. To keep pace in his life experience with the impelling demands and the compelling urges of a growing religious experience means incessant activity in spiritual growth, intellectual expansion, factual enlargement, and social service. There is no real religion apart from a highly active personality. Therefore do the more indolent of men often seek to escape the rigors of truly religious activities by a species of ingenious self-deception through resorting to a retreat to the false shelter of stereotyped religious doctrines and dogmas. But true religion is alive. Intellectual crystallization of religious concepts is the equivalent of spiritual death. You cannot conceive of religion without ideas, but when religion once becomes reduced only to an *idea*, it is no longer religion; it has become merely a species of human philosophy.

102:2.8 (1121.1) Again, there are other types of unstable and poorly disciplined souls who would use the sentimental ideas of religion as an avenue of escape from the irritating demands of living. When certain vacillating and timid mortals attempt to escape from the incessant pressure of evolutionary life, religion, as they conceive it, seems to present the nearest refuge, the best avenue of escape. But it is the mission of religion to prepare man for bravely, even heroically, facing the vicissitudes of life. Religion is evolutionary man's supreme endowment, the one thing which enables him to carry on and “endure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Mysticism, however, is often something of a retreat from life which is embraced by those humans who do not relish the more robust activities of living a religious life in the open arenas of human society and commerce. True religion must *act*. Conduct will be the result of religion when man actually has it, or rather when religion is permitted truly to possess the man. Never will religion be content with mere thinking or unacting feeling.

102:2.9 (1121.2) We are not blind to the fact that religion often acts unwisely, even irreligiously, but it *acts*. Aberrations of religious conviction have led to bloody persecutions, but always and ever religion does something; it is dynamic!

3. KNOWLEDGE, WISDOM, AND INSIGHT

102:3.1 (1121.3) Intellectual deficiency or educational poverty unavoidably handicaps higher religious attainment because such an impoverished environment of the spiritual nature robs religion of its chief channel of philosophic contact with the world of scientific knowledge. The intellectual factors of religion are important, but their overdevelopment is likewise sometimes very handicapping and embarrassing. Religion must

성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사고{思考}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추론{推論}은 필연적이지만 항상 해로우며; 추론은 변함없이 그 대상을 왜곡한다. 추론은 종교를 물질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논리적 사고의 명료성을 직접 방해하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종교가 현세의 기능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드는데, 종교는 바로 그 세상과 영구히 대조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항상 역설이 종교의 특징인데, 이 역설은 우주의 물질적 수준과 영적 수준 사이에 체험적 연결이 없음으로 인해--곧 모론시아 모타, 즉 진리를 분별하고 통일을 감지하는, 철학을 뛰어넘는 민감성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된다.

물질적 느낌, 즉 인간 감정이, 물질적 행위, 즉 이기적 행동으로 직접 이끈다. 종교적 통찰력, 즉 영적 동기가, 종교 활동, 즉 사회 봉사와 이타적 자비심이라는 사심 없는 행동으로 직접 이끈다.

종교적 열망은, 신성한 실체를 탐구하는 갈급함이다. 종교적 체험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의식{意識}을 깨닫는 것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존재의 혼 속에서, 발견했다는 승리감으로 인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흥분상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덜 계몽된 동료에게 애정 어린 봉사로 접촉하도록 재촉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를 회복시키고 고귀하게 만들려고, 자기 혼 속에서 영원한 선{善}이 흘러넘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다. 진짜 종교는 사회에 더욱 봉사하도록 이끈다.

과학, 즉 지식은 사실을 의식하도록 인도하고; 종교, 즉 체험은 가치를 의식하도록 인도하며; 철학, 즉 지혜는 조화를 의식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곧 모론시아 모타의 대응품은) **참된 실체**를 의식하도록 인도하며; 한편 사실, 가치, 및 참된 실체에 대한 의식을 조화시키는 것은, 인격 실체, 즉 최대한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와 함께 바로 그 인격이 생존할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지식은 사람의 지위를 정하도록 이끄는데, 사회 계층과 계급제도를 창설한다. 종교는 사람을 섬기는 길로 이끌며, 그리하여 윤리와 이타주의를 생성한다. 지혜는 이 두 관념과 사람의 동료들의 교류가 더 깊어지고 더 나아지도록 이끈다. 계시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모험을 시작하게 한다.

과학은 사람을 분류하고; 종교는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며; 지혜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만; 계시는 사람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동역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continually labor under a paradoxical necessity: the necessity of making effective use of thought while at the same time discounting the spiritual serviceableness of all thinking.

102:3.2 (1121.4) Religious speculation is inevitable but always detrimental; speculation invariably falsifies its object. Speculation tends to translate religion into something material or humanistic, and thus, while directly interfering with the clarity of logical thought, it indirectly causes religion to appear as a function of the temporal world, the very world with which it should everlastingly stand in contrast. Therefore will religion always be characterized by paradoxes, the paradoxes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the experiential connecti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levels of the universe — morontia mota, the superphilosophic sensitivity for truth discernment and unity perception.

102:3.3 (1121.5) Material feelings, human emotions, lead directly to material actions, selfish acts. Religious insights, spiritual motivations, lead directly to religious actions, unselfish acts of social service and altruistic benevolence.

102:3.4 (1121.6) Religious desire is the hunger quest for divine reality. Religious experience is the realiz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having found God. And when a human being does find God, there is experienced within the soul of that being such an indescribable restlessness of triumph in discovery that he is impelled to seek loving service-contact with his less illuminated fellows, not to disclose that he has found God, but rather to allow the overflow of the welling-up of eternal goodness within his own soul to refresh and ennoble his fellows. Real religion leads to increased social service.

102:3.5 (1122.1) Science, knowledge, leads to *fact* consciousness; religion, experience, leads to *value* consciousness; philosophy, wisdom, leads to *co-ordinate* consciousness; revelation (the substitute for morontia mota) leads to the consciousness of *true reality*; while the co-ordin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fact, value, and true reality constitutes awareness of personality reality, maximum of being, together with the belief in the possibility of the survival of that very personality.

102:3.6 (1122.2) Knowledge leads to placing men, to originating social strata and castes. Religion leads to serving men, thus creating ethics and altruism. Wisdom leads to the higher and better fellowship of both ideas and one's fellows. Revelation liberates men and starts them out on the eternal adventure.

102:3.7 (1122.3) Science sorts men; religion loves men, even as yourself; wisdom does justice to differing men; but revelation glorifies man and discloses his capacity for partnership with God.

역량을 드러낸다.

과학은 문화 협회를 창설하려고 헛되이 애쓰며;종교는 영의 협회를 만들어 낸다. 철학은 지혜의 협회를 위해서 애쓰며;계시는 영원한 협회, 즉 **낙원 완결성취 단체**를 묘사한다.

지식은 인격이 실재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지혜는 인격체의 의미를 의식하는 것이며;종교는 인격체의 가치를 인지(認知)하는 체험이며;계시는 인격이 생존하는 것을 보장한다.

과학은, 무한한 시공우주의 분할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종교는 전체의_관념, 즉 전체 시공우주를 파악하려고 한다. 철학은, 과학의 물질 단편들을 전체의 영적_통찰력 개념과 동일시하려고 애쓴다. 철학이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점에서 계시는 성공하는데, 시공우주 체계가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함을 확인한다. **무한한 자존자**의 이 시공우주는 그래서 끝이 없고 무한하며 전부_포함한다--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고, 조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자존자**가 또한 **네바돈의 미가엘의 아버지**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

과학은 **신격**이 사실임을 표시하며;철학은 **절대자** 관념을 제시하며;종교는 **하나님**이 자애로운 영적 인격체라고 상상한다. 계시는, **신격**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자**라는 관념, 및 **하나님**의 영적 인격, 이 세 가지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이 개념이--즉 실존하는 보편적 사실, 영원한 정신 관념, 그리고 무한한 생명의 영이--우리 **아버지**라고 제시한다.

지식 추구가 과학을 구성하며;지혜 탐구가 철학이며;**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이며;진리를 갈망함이 계시이다. 그러나 시공우주를 꿰뚫어보는, 사람의 영적 통찰력에 실체의 느낌을 덧붙여주는 것은,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다.

과학에서는, 관념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관념이 앞서며;종교에서는, 깨닫는 체험이 관념의 표현보다 앞선다. 계몽된 이성, 종교적 통찰력, 및 계시, 이 세 가지의 산물과--곧 믿는 의지와-민고자하는_진화적_의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진화에서는, 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개념을 창출하도록 종종 인도하며;**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진화시키는 현상을 계시가 드러내며,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현상을 목격했다. 진화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학은 오직 최초 원인들로 만족하고, 종교는

102:3.8 (1122.4) Science vainly strives to create the brotherhood of culture; religion brings into being the brotherhood of the spirit. Philosophy strives for the brotherhood of wisdom; revelation portrays the eternal brotherhood,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02:3.9 (1122.5) Knowledge yields pride in the fact of personality; wisdom is the consciousness of the meaning of personality; religion is the experience of cognizance of the value of personality; revelation is the assurance of personality survival.

102:3.10 (1122.6) Science seeks to identify, analyze, and classify the segmented parts of the limitless cosmos. Religion grasps the idea-of-the-whole, the entire cosmos. Philosophy attempts the 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segments of science with the spiritual-insight concept of the whole. Wherein philosophy fails in this attempt, revelation succeeds, affirming that the cosmic circle is universal, eternal, absolute, and infinite. This cosmos of the Infinite I AM is therefore endless, limitless, and all-inclusive — timeless, spaceless, and unqualified. And we bear testimony that the Infinite I AM is also the Father of Michael of Nebadon and the God of human salvation.

102:3.11 (1122.7) Science indicates Deity as a fact; philosophy presents the idea of an Absolute; religion envisions God as a loving spiritual personality. Revelation affirms the unity of the fact of Deity, the idea of the Absolute, and the spiritual personality of God and, further, presents this concept as our Father — the universal fact of existence, the eternal idea of mind, and the infinite spirit of life.

102:3.12 (1122.8) The pursuit of knowledge constitutes science; the search for wisdom is philosophy; the love for God is religion; the hunger for truth is a revelation. But it is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that attaches the feeling of reality to man's spiritual insight into the cosmos.

102:3.13 (1122.9) In science, the idea precedes the expression of its realization; in religion, the experience of realization precedes the expression of the idea. There is a vast difference between the evolutionary will-to-believe and the product of enlightened reason, religious insight, and revelation — the will that believes.

102:3.14 (1122.10) In evolution, religion often leads to man's creating his concepts of God; revelation exhibits the phenomenon of God's evolving man himself, while in the earth life of Christ Michael we behold the phenomenon of God's revealing himself to man. Evolution tends to make God manlike; revelation tends to make man Godlike.

102:3.15 (1122.11) Science is only satisfied with first

최상 인격으로 만족하고, 철학은 통일로 만족한다. 계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이며, 그 모든 것이 선함을 확언한다. 영원한 실상은, 우주가 선하다는 것이고, 공간이 악하다는 한때의 착각이 아니다. 모든 인물의 영적 체험에서는, 실재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실재하는 것임이 항상 참이다.

4. 체험이라는 사실

사교 조율사가 너희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것은, 인간이든지 초인간이든지, 다른 어떤 정신을 안다는 의식{意識}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종교와 사회 의식은 이런 공통점을 갖는데: 남에게 **신경쓰임**을 의식하는 데 입각한다. 너희가 다른 존재들의 관념을 마치 너희 것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정신을 너희 안에도 품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법이다.

인간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아와, 활동적이고 밖에 있는 어느 다른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체험의 양은, 개념의 깊이, 그리고 외부의 실체를 인식한 것 전체의 합으로 결정된다. 체험의 운동능력은, 기대하는 상상력의 힘에, 접촉했던 실체의 외부 특성을 감각으로 발견이라는 민감성을 더한 것이다. 체험하는 사실은, 자아 의식과 기타 실존들--곧 남을 객관적 실체로 여김, 남에게 **신경쓰임**, 남에게 **활기를 줌**--의 합{sum}에서 발견된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또는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아주 일찍부터 의식하게 된다. 자기분위 환경에서, 남에게 **신경쓰임**이라는 자연스런 자발적 자아 의식이 발달한다. 신앙은 이런 자연스런 체험을 종교로 바꾸는데, 이것은 남에게 **신경쓰임**의 실체로서--곧 근원, 본성, 및 운명으로서--**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언제나 반드시 몸소 체험하는 실체다.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한 인간의 인격이 겪는 진짜 종교 체험의 생생한 부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종교 체험에서 실책의 요소는, **만유의 아버지**라는 영적 개념을 오염시키는 유물론의 내용에 정비례한다. 우주에서 영을 받기 이전{以前} 사람의 진보는, **하나님**의 본성과 순수하고 참된 영 실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념을 떨쳐버리는 체험에 있다. **신격**은 영{靈} 이상{以上}이지만, 영적 접근법만이, 상승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법이다.

기도는 정말로 종교 체험의 한 부분이지만, 경배라는 더 근본적인 교통을 많이 소홀히 할 정도까지, 현대 종교는 기도를 잘못 강조해 왔다. 정

causes, religion with supreme personality, and philosophy with unity. Revelation affirms that these three are one, and that all are good. The *eternal real* is the good of the universe and not the time illusions of space evil.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all personalities, always is it true that the real is the good and the good is the real.

4. THE FACT OF EXPERIENCE

102:4.1 (1123.1) Because of the presence in your minds of the Thought Adjuster, it is no more of a mystery for you to know the mind of God than for you to be sure of the consciousness of knowing any other mind, human or superhuman. Religion and social consciousness have this in common: They are predicated on the consciousness of other-mindness. The technique whereby you can accept another's idea as yours is the same whereby you may "let the mind which was in Christ be also in you."

102:4.2 (1123.2) What is human experience? It is simply any interplay between an active and questioning self and any other active and external reality. The mass of experience is determined by depth of concept plus totality of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 external. The motion of experience equals the force of expectant imagination plus the keenness of the sensory discovery of the external qualities of contacted reality. The fact of experience is found in self-consciousness plus other-existences — other-thingness, other-mindness, and other-spiritness.

102:4.3 (1123.3) Man very early becomes conscious that he is not alone in the world or the universe. There develops a natural spontaneous self-consciousness of other-mindness in the environment of selfhood. Faith translates this natural experience into religion, the recognition of God as the reality — source, nature, and destiny — of *other-mindness*. But such a knowledge of God is ever and alway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If God were not a personality, he could not become a living part of the real religious experience of a human personality.

102:4.4 (1123.4) The element of error present in human religious experienc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tent of materialism which contaminates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Man's prespirit progression in the universe consists in the experience of divesting himself of these erroneous ideas of the nature of God and of the reality of pure and true spirit. Deity is more than spirit, but the spiritual approach is the only one possible to ascending man.

102:4.5 (1123.5) Prayer is indeed a part of religious experience, but it has been wrongly emphasized by modern religions, much to the neglect of the

신의 숙고하는 능력은 경배로 인해 깊어지고 넓어진다. 기도가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 경배는 운명을 밝혀준다.

계시된 종교는, 인간 실존을 통합시키는 요소다. 계시는, 역사를 통일시키고, 지질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및 심리학 등을 조화시킨다. 영적 체험이 사람의 시공우주, 즉 진짜 혼이다.

5. 의도적 잠재력의 우월성

믿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믿는 대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생명이 인격의 지위까지 진화로 진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격 잠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한(時限)이 있는 우주에서는, 잠재력이 실제보다 반드시 훨씬 우세하다.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 잠재력은 앞으로 이뤄질 무언이며, 앞으로 이뤄질 무언은 **신격**이 의도적으로 내린 명령이 전개되는 것이다.

동물적인 원시 공포심이, 계속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전환되고, 우주에 대한 점점 더 심화되는 경외심으로 전환될 때, 바로 이 의도된 우월성은 정신의 관념작용이 진화하는 데서 나타난다. 원시인은 신앙보다는 종교적인 두려움이 더 많았으며, 영 잠재력이 현재의 정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 소심한 두려움이 영적 실체들을 믿는 생생한 신앙으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너희는 진화 종교를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기원되는 개인_체험의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은 가치를 인식할지 모르지만, 오직 종교만이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영성화(靈性化)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있어도, 종교는 감정으로 취급되는 도덕 이상의 어떤 것이다.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사랑과 의무의 관계, 아들신분과 노예 신세의 관계, 본질과 물체의 관계와 같다. 도덕은, 전능한 **지배자**, 즉 섬김 받으실 **신격**을 드러내며; 종교는, 만유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즉 경배와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영적 잠재력이, 진화에서 도덕성의 임무 실태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6.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종교적 두려움이 철학적으로 제거되고, 과학이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거짓된 신(神)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며; 사람이 만든 신격들이 이렇게 무력화됨으로써 영적 시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랑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그

more essential communion of worship. The reflective powers of the mind are deepened and broadened by worship. Prayer may enrich the life, but worship illuminates destiny.

102:4.6 (1123.6) Revealed religion is the unifying element of human existence. Revelation unifies history, co-ordinates geology, astronomy, physics, chemistry, biology, sociology, and psychology. Spiritual experience is the real soul of man's cosmos.

5. THE SUPREMACY OF PURPOSEIVE POTENTIAL

102:5.1 (1123.7)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 of belief is not equivalent to establishing the fact of that which is believed, nevertheless, the evolutionary progression of simple life to the status of personality does demonstrate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the potential of personality to start with. And in the time universes, potential is always supreme over the actual. In the evolving cosmos the potential is what is to be, and what is to be is the unfolding of the purposive mandates of Deity.

102:5.2 (1124.1) This same purposive supremacy is shown in the evolution of mind ideation when primitive animal fear is transmuted into the constantly deepening reverence for God and into increasing awe of the universe. Primitive man had more religious fear than faith, and the supremacy of spirit potentials over mind actuals is demonstrated when this craven fear is translated into living faith in spiritual realities.

102:5.3 (1124.2) You can psychologize evolutionary religion but not the personal-experience religion of spiritual origin. Human morality may recognize values, but only religion can conserve, exalt, and spiritualize such values. But notwithstanding such actions, religion is something more than emotionalized morality. Religion is to morality as love is to duty, as sonship is to servitude, as essence is to substance. Morality discloses an almighty Controller, a Deity to be served; religion discloses an all-loving Father, a God to be worshiped and loved. And again this is because the spiritual potentiality of religion is dominant over the duty actuality of the morality of evolution.

6. THE CERTAINTY OF RELIGIOUS FAITH

102:6.1 (1124.3) The philosophic elimination of religious fear and the steady progress of science add greatly to the mortality of false gods; and even though these casualties of man-made deities may momentarily begot the spiritual vision, they eventually destroy that ignorance and superstition

무지와 미신을 결국 타파할 것이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는, 생생한 체험, 즉 역동적인 종교적 신앙인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생활의 일부를 격리시키면서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생활을 봉괴시키고 종교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충성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이유다.

원시인이 섬기던 신들은 원시인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 같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은 신성한 빛이신데,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모든 공간에서 창조의 그림자를 만든다.

철학으로 달성한 종교인은,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인격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는데, 실체, 가치, 성취 수준, 고양(高揚)된 과정, 변이, 시공간의 최종 단계, 이상화(理想化), 에너지의 인격화, 인력(引力)을 가진 실체, 인간의 예측, 자아의 이상화, 자연이 밀어올림, 선을 향한 경향,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화 충동, 또는 탁월한 가설보다 더한 무엇이다. 종교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다. 사랑은 종교의 근본이며 뛰어난 문명의 원천이다.

신앙은, 있음직한 철학적 **하나님**을, 개인의 종교 체험에서 확실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꾼다. 무신론이 신학 이론에 도전할지 모르지만, 몸소 겪은 체험의 신빙성을 확신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단언한다.

하나님에 관한 확신은 현명한 이성 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오직 신앙으로, 즉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삶에 관계되는 많은 일에는, 가능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시공우주 실체와 접촉할 때에는, 그런 의미와 가치기준을 생생한 신앙으로 접근할 때 확실성을 체험할 수 있다. 지적 논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확신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혼은 “내가 안다”고 감히 말한다. 그렇게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는 오직, “내가 알지 못함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대답할 뿐이다.

이성은 항상 신앙을 의심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항상 이성과 논리 양쪽을 보충할 수 있다. 이성은, 신앙이 도덕적 확실성으로, 그리고 심지어 영적 체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최초의 진리이자 최종적 사실이시며; 따라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한편 모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즉 설명하려면— 반드시 온갖 우주의 사실을 탐구해야 한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실임을 모르는 것 사이의 엄청난 간격에는, 오직 생생한 신앙으로만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무한한 진리와 우주의 사실들

which so long obscured the living God of eternal love. The relation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is a living experience, a dynamic religious faith, which is not subject to precise definition. To isolate part of life and call it religion is to disintegrate life and to distort religion. And this is just why the God of worship claims all allegiance or none.

102:6.2 (1124.4) The gods of primitive men may have been no more than shadows of themselves; the living God is the divine light whose interruptions constitute the creation shadows of all space.

102:6.3 (1124.5) The religionist of philosophic attainment has faith in a personal God of personal salvation, something more than a reality, a value, a level of achievement, an exalted process, a transmutation, the ultimate of time-space, an idealization, the personalization of energy, the entity of gravity, a human projection, the idealization of self, nature's upthrust, the inclination to goodness, the forward impulse of evolution, or a sublime hypothesis. The religionist has faith in a God of love. Love is the essence of religion and the wellspring of superior civilization.

102:6.4 (1124.6) Faith transforms the philosophic God of probability into the saving God of certainty i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Skepticism may challenge the theories of theology, but confidence in the dependability of personal experience affirms the truth of that belief which has grown into faith.

102:6.5 (1124.7) Convictions about God may be arrived at through wise reasoning, but the individual becomes God-knowing only by faith, through personal experience. In much that pertains to life, probability must be reckoned with, but when contacting with cosmic reality, certainty may be experienced when such meanings and values are approached by living faith. The God-knowing soul dares to say, “I know,” even when this knowledge of God is questioned by the unbeliever who denies such certitude because it is not wholly supported by intellectual logic. To every such doubter the believer only replies, “How do you know that I do not know?”

102:6.6 (1125.1) Though reason can always question faith, faith can always supplement both reason and logic. Reason creates the probability which faith can transform into a moral certainty, even a spiritual experience. God is the first truth and the last fact; therefore does all truth take origin in him, while all facts exist relative to him. God is absolute truth. As truth one may know God, but to understand — to explain — God, one must explore the fac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vast gulf between the experience of the truth of God and ignorance as to the fact of God can be bridged only by living faith. Reason alone cannot achieve harmony between infinite truth and universal fact.

조화시킬 수 없다.

믿음은 의심을 저지할 수 없고 두려움에 저항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신앙은 반드시 의심을 물리치는데, 신앙은 긍정적인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긍정이 부정보다, 진리는 오류보다, 체험은 이론보다, 영적 실체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격리된 사실보다, 항상 장점이 있다. 이 영적 확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영이 사회에서 맺는 열매에 있으며, 그런 신자{信者}, 즉 신앙인은 참된 이 영적 체험의 결과로 그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동료들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과학에서는 가능성이고, 심리학에서는 바람직함이며, 철학에서는 있음직함이고, 종교에서는 확실성, 즉 종교 체험이라는 실재상황이다. 있음직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철학은, 확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그 종교적 신앙을 대단히 존중해야 한다고, 이성이 요구한다. 또한 과학은, 사람이 쉽게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체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되며, 사람의 지적 및 철학적 재능이,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열등한 지성에서 출현했다고, 마침내 모든 생각과 느낌이 전혀 없는 원시 생명체에서 기원했다고 계속 가정하는 한, 그들은 더욱 뒷걸음질할 것이다.

진화에 속하는 여러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가 종교 생활에서 얻는 확실한 영적 체험이 실체라는 진리에 맞서서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명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따지기를 멈추고, 일관성 있는 어른의 논리, 즉 사실의 관측과 나란히 진리의 개념을 허용하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애써야 한다. 거듭해서 일어나는 우주 현상 하나하나와 마주쳐서, 명백하게 높은 것을 명백하게 낮은 것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현재의 반론을 지속해서 되풀이할 때, 과학적 유물론은 파산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목적을 가진 **창조주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유기체의 진화는 사실이며; 의도적 진화, 즉 점진적 진화는 진리이고, 늘_올라가는 진화적 성취라는, 다른 면에서 모순된 현상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어떤 과학자든지, 자신이 선택한 과학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존자 정신**이 지배한다는 시공우주 진리를 지지해서, 유물론적 사실에 근거한 이론들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생애를 값싸게 만들며; **예수**의 복음은 모든 필사자를 엄청나게 증진시키고 숭고하게 고양시킨다. 필사자의 실존은, 인간이 위로_뻗은 손과 신{神}이 아래로_뻗은 구원의 손이 만나는 현실을 깨닫는, 흥미를 자아내는 매혹적인 체험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102:6.7 (1125.2) Belief may not be able to resist doubt and withstand fear, but faith is always triumphant over doubting, for faith is both positive and living. The positive always has the advantage over the negative, truth over error, experience over theory, spiritual realities over the isolated facts of time and space.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is spiritual certainty consists in the social fruits of the spirit which such believers, faithers, yield as a result of this genuine spiritual experience. Said Jesus: “If you love your fellows as I have loved you, then sha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102:6.8 (1125.3) To science God is a possibility, to psychology a desirability, to philosophy a probability, to religion a certainty, an actu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Reason demands that a philosophy which cannot find the God of probability should be very respectful of that religious faith which can and does find the God of certitude. Neither should science discount religious experience on grounds of credulity, not so long as it persists in the assumption that man's intellectual and philosophic endowments emerged from increasingly lesser intelligences the further back they go, finally taking origin in primitive life which was utterly devoid of all thinking and feeling.

102:6.9 (1125.4) The facts of evolution must not be arrayed against the truth of the reality of the certainty of the spiritual experience of the religious living of the God-knowing mortal. Intelligent men should cease to reason like children and should attempt to use the consistent logic of adulthood, logic which tolerates the concept of truth alongside the observation of fact. Scientific materialism has gone bankrupt when it persists, in the face of each recurring universe phenomenon, in refunding its current objections by referring what is admittedly higher back into that which is admittedly lower. Consistency demands the recognition of the activities of a purposive Creator.

102:6.10 (1125.5) Organic evolution is a fact; purposive or progressive evolution is a truth which makes consistent the otherwise contradictory phenomena of the ever-ascending achievements of evolution. The higher any scientist progresses in his chosen science, the more will he abandon the theories of materialistic fact in favor of the cosmic truth of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Mind. Materialism cheapens human life; the gospel of Jesus tremendously enhances and supernally exalts every mortal. Mortal existence must be visualized as consisting in the intriguing and fascinating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meeting of the human upreach and the divine and saving downreach.

7. 신성한 존재에 대한 확신

7. THE CERTITUDE OF THE DIVINE

만유의 아버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므로, 또한 설명이 불필요하며; 모든 이성적 필사자 속에 실제로 사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관해 확신할 수 없으며; 아들신분은,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체험이다. 우주는 어디서나 변화를 겪는다. 변화하는 우주는 종속적인 우주이며; 그런 창조는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유한한 우주는 **궁극자와 절대자**에게 완전히 종속된다. 우주와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다. 원인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며; 결과는 시-공간에서 일어나고, 초월적이지만 영원히 변화하고 항상 성장한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스스로 원인이 된, 오직 하나 뿐인 사실이다. 그는 사물과 존재들로 이뤄진 온 창조의 질서, 계획, 및 목적의 비결이다. 어디서나 변하는 우주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 즉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질에 따라서 통제되고 안정된다. **하나님**의 실상, 즉 신(神)의 법칙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진리, 즉 그분과 우주의 관계는, 항상 진화하는 우주에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 계시(啓示)이다.

하나님 없이 종교를 창안하려는 자는, 나무 없이 과일을 모으려는, 부모 없이 자녀를 두려는 사람과 같다. 너희는 원인 없이 결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자존자**(自存者)만 원인이 없으시다. 종교 체험의 실상은 **하나님**을 내포하며, 개인이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은 인격있는 **신격**이어야 한다. 너희는 화학 공식에게 기도하거나, 수학 방정식에게 간구하거나, 가정(假定)을 경배하거나, 공리를 신뢰하거나, 과정과 사귀거나, 추상 개념을 섬기거나, 또는 법칙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을 수 없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많은 특징이, 비종교적 근원에서 자라날 수 있다. 사람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충실하며 효심 있고 정직하며 심지어 이상적일 수도 있다. 사람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많은 가치를 자신의 기본적인 영적 본성에 접목(接木)시키고, 이처럼 신이 없는 종교의 편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에는, 생존하는 가치,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것이 빠져있다. 그런 필사자 체험에는 영적 열매가 아니라 오직 사회적 열매만 맺힌다. 신(神)이 원래 내려준 정신과 영의 뿌리로부터 생존을 위한 자양물을 흡수함에도, 어디에 접목했는지에 따라서 열매의 본질이 결정된다.

종교의 지적 표식은 확신이며; 철학적 특질은 일관성이고; 사회적 열매는 사랑과 봉사다.

하나님을 아는 개인은, 미신, 전통, 및 현대의 유물론 경향이 있는 미로(迷路)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들을 못 보거나, 장애물을 눈치 채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이

102:7.1 (1126.1) The Universal Father, being self-existent, is also self-explanatory; he actually lives in every rational mortal. But you cannot be sure about God unless you know him; sonship is the only experience which makes fatherhood certain. The universe is everywhere undergoing change. A changing universe is a dependent universe; such a creation cannot be either final or absolute. A finite universe is wholly dependent on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The universe and God are not identical; one is cause, the other effect. The cause is absolute, infinite, eternal, and changeless; the effect, time-space and transcendental but ever changing, always growing.

102:7.2 (1126.2) God is the one and only self-caused fact in the universe. He is the secret of the order, plan, and purpose of the whole creation of things and beings. The everywhere-changing universe is regulated and stabilized by absolutely unchanging laws, the habits of an unchanging God. The fact of God, the divine law, is changeless; the truth of God, his relation to the universe, is a relative revelation which is ever adaptable to the constantly evolving universe.

102:7.3 (1126.3) Those who would invent a religion without God are like those who would gather fruit without trees, have children without parents. You cannot have effects without causes; only the I AM is causeless. The fact of religious experience implies God, and such a God of personal experience must be a personal Deity. You cannot pray to a chemical formula, supplicate a mathematical equation, worship a hypothesis, confide in a postulate, commune with a process, serve an abstraction, or hold loving fellowship with a law.

102:7.4 (1126.4) True, many apparently religious traits can grow out of nonreligious roots. Man can, intellectually, deny God and yet be morally good, loyal, filial, honest, and even idealistic. Man may graft many purely humanistic branches onto his basic spiritual nature and thus apparently prove his contentions in behalf of a godless religion, but such an experience is devoid of survival values, God-knowingness and God-ascension. In such a mortal experience only social fruits are forthcoming, not spiritual. The graft determines the nature of the fruit, notwithstanding that the living sustenance is drawn from the roots of original divine endowment of both mind and spirit.

102:7.5 (1126.5) The intellectual earmark of religion is certainty; the philosophical characteristic is consistency; the social fruits are love and service.

102:7.6 (1126.6) The God-knowing individual is not one who is blind to the difficulties or unmindful of the obstacles which stand in the way of finding God in the maze of superstition, tradition, and

런 모든 방해물에 봉착해 왔고, 그것들을 극복했으며, 생생한 신앙으로 이겨냈고, 방해물이 있음에도 영적 체험의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어려움을 부풀리는 자들이 허다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하는 많은 사람이, 그런 확신의 느낌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함을 골라내거나,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대단한 지능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런 여러 질문에 대답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뛰어난 정신이 요구되며; 그런 모든 하찮은 논쟁을 처리하는 데는, 신앙의 확신이 가장 탁월한 기법이다.

과학, 철학, 또는 사회학이 참 종교의 선지자들과 논쟁함에서 감히 독단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자존자**의 아들이므로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안다”고 하면서, 개인의 확실한 영적 체험에서 생긴, 더 선견지명 있는 독단적 태도로, 그런 근거 없는 독단적 태도에 답변해야 한다. 한 신앙인의 개인 체험이 교의에 도전받을 때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 교의, 즉 자신이 실제로 **만유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로 응답해도 좋다.

무조건적인 실체, 즉 절대적 존재만이, 감히 일관되게 독단적일 수 있다. 독단적 상태가 되려는 자는, 지조가 있다면, 곧 에너지의 **절대자**, 진리의 **우주적 존재**, 및 사랑의 **무한자**의 품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시공우주 실체에 이르는 비종교적 접근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감히 신앙의 확실성에 도전한다면, 영을 체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과학이 다루는 사실과 철학의 믿음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독단적으로 도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으며; 이 사실과 믿음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나 철학자의 의식 속에 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존 중에서 가장 불가피한, 모든 사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생생한, 모든 친구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런, 그리고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신성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전체 우주 체험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행동 권리가 있다.

8. 종교의 징표

종교의 실체와 효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징표는, **인간의 체험이라는 사실**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의심하며, 강한 자아-보존 본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시에, 죽음 이후의 생존을 갈망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권능 및 인격자가 보존하고 지도하도록,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materialistic tendencies of modern times. He has encountered all these deterrents and triumphed over them, surmounted them by living faith, and attained the highlands of spiritual experience in spite of them. But it is true that many who are inwardly sure about God fear to assert such feelings of certainty because of the multiplicity and cleverness of those who assemble objections and magnify difficulties about believing in God. It requires no great depth of intellect to pick flaws, ask questions, or raise objections. But it does require brilliance of mind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solve these difficulties; faith certainty is the greatest technique for dealing with all such superficial contentions.

102:7.7 (1127.1) If science, philosophy, or sociology dares to become dogmatic in contending with the prophets of true religion, then should God-knowing men reply to such unwarranted dogmatism with that more farseeing dogmatism of the certainty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 know what I have experienced because I am a son of I AM.” If the personal experience of a faither is to be challenged by dogma, then this faith-born son of the experiential Father may reply with that unchallengeable dogma, the statement of his actual sonship with the Universal Father.

102:7.8 (1127.2) Only an unqualified reality, an absolute, could dare consistently to be dogmatic. Those who assume to be dogmatic must, if consistent, sooner or later be driven into the arms of the Absolute of energy, the Universal of truth, and the Infinite of love.

102:7.9 (1127.3) If the nonreligious approaches to cosmic reality presume to challenge the certainty of faith on the grounds of its unproved status, then the spirit experienter can likewise resort to the dogmatic challenge of the facts of science and the beliefs of philosophy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likewise unproved; they are likewise experi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cientist or the philosopher.

102:7.10 (1127.4) Of God, the most inescapable of all presences, the most real of all facts, the most living of all truths, the most loving of all friends, and the most divine of all values, we have the right to be the most certain of all universe experiences.

8. THE EVIDENCES OF RELIGION

102:8.1 (1127.5) The highest evidence of the reality and efficacy of religion consists in the *fact of human experience*; namely, that man, naturally fearful and suspicious, innately endowed with a strong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and craving survival after death, is willing fully to trust the deepest interests of his present and future to the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기꺼이 전적으로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유일한 중심 진리다. 그 권능 또는 인격자가 이런 보호와 최종적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두 종교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 그 종교들은 모두 대체로 의견이 다르다.

어떤 종교든지 진화의 척도에서 그 종교가 차지하는 지위에 관해서 말하자면, 종교를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른다. 어떤 종교든지 높은 유형일수록, 계속 개선되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문화를 더 권장하며, 또한 이에 격려 받는다. 우리는 종교를 그에 수반되는 문명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으며; 차라리 문명의 실제 본성을 자체 종교의 순수함과 고결함에 따라서 추정하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많은 종교 스승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구원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세상의 지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다양한 시대에 있던 여러 종교의 차이점은, 사람이 실체를 다르게 납득함에, 그리고 도덕적 가치, 윤리적 관계, 및 영적 실체들을 사람이 다르게 인식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윤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내면의 영적 및 종교적 발전의 진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영원한 사회적 또는 인종적 거울이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알았던 최상의 용어, 즉 가장 심오한 관념과 가장 높은 이상{理想}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 심지어 역사적 종교도, 반드시 그 종교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가치기준으로부터 **하나님** 개념을 고안해냈다. 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표현 방식으로 격하될 때, 자체의 윤리적 문화와 도덕적 진보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던 대로, 종교는 언제나 감히 문명과 진화적 진보를 비판해 왔다.

개인적 종교는 인간의 도덕의 진화를 앞서지만, 제도화된 종교는, 느리게 발생하는 인류의 서서히 변하는 사회관행보다 항상 뒤쳐졌다고 기록하는 것은 유감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보수적으로 더딘 것이 입증돼 왔다. 종교적 발전을 이루도록, 대개 선지자들이 사람을 인도해 왔으며; 신학자는 대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왔다. 종교는, 내적{內的} 문제, 즉 개인적 체험의 문제이므로, 결코 종족들의 지적 진화보다 훨씬 앞서서 발달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는 결코 소위 기적 같은 것에 호소함으로써는 향상될 수 없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원시의 마술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참 종교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으며, 계시된 종교는, 권위를 증명하려고 결코 기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종교는, 영원히 그리고 언제든지, 개인의 체험에 뿌리를 내리고

keeping and direction of that power and person designated by his faith as God. That is the one central truth of all religion. As to what that power or person requires of man in return for this watchcare and final salvation, no two religions agree; in fact, they all more or less disagree.

102:8.2 (1127.6) Regarding the status of any religion in the evolutionary scale, it may best be judged by its moral judgments and its ethical standards. The higher the type of any religion, the more it encourages and is encouraged by a constantly improving social morality and ethical culture. We cannot judge religion by the status of its accompanying civilization; we had better estimate the real nature of a civilization by the purity and nobility of its religion. Many of the world's most notable religious teachers have been virtually unlettered. The wisdom of the world is not necessary to an exercise of saving faith in eternal realities.

102:8.3 (1127.7) The difference in the religions of various ages is wholly dependent on the difference in man's comprehension of reality and on his differing recognition of moral values, ethical relationships, and spirit realities.

102:8.4 (1127.8) Ethics is the external social or racial mirror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otherwise unobservable progress of internal spiritual and religious developments. Man has always thought of God in the terms of the best he knew, his deepest ideas and highest ideals. Even historic religion has always created its God conceptions out of its highest recognized values. Every intelligent creature gives the name of God to the best and highest thing he knows.

102:8.5 (1128.1) Religion, when reduced to terms of reason and intellectual expression, has always dared to criticize civilization and evolutionary progress as judged by its own standards of ethical culture and moral progress.

102:8.6 (1128.2) While personal religion precedes the evolution of human morals, it is regretfully recorded that institutional religion has invariably lagged behind the slowly changing mores of the human races. Organized religion has proved to be conservatively tardy. The prophets have usually led the people in religious development; the theologians have usually held them back. Religion, being a matter of inner or personal experience, can never develop very far in advance of the intellectual evolution of the races.

102:8.7 (1128.3) But religion is never enhanced by an appeal to the so-called miraculous. The quest for miracles is a harking back to the primitive religions of magic. True religion has nothing to do with alleged miracles, and never does revealed religion point to miracles as proof of authority. Religion is ever and always rooted and grounded in personal

거기에 기초한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고상한 종교인 **예수**의 생애는, 바로 그렇게 몸소 겪은 체험이었으며: 그는 육신 속에서 가졌던 한 번의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찾다가 마음껏 찾은 사람, 필사적 사람이었고, 한편 바로 그 인간 체험 속에서 사람을 찾다가, 무한히 높은 완전한 혼이 철저히 만족하기까지, 사람을 찾고 발견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종교이며, 이제까지 **네바돈** 우주에서 계시된 가장 높은 종교는 바로-**나사렛 예수**의 지상{地上} 생애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experience. And your highest religion, the life of Jesus, was just such a personal experience: man, mortal man, seeking God and finding him to the fullness during one short life in the flesh, while in the same human experience there appeared God seeking man and finding him to the full satisfaction of the perfect soul of infinite supremacy. And that is religion, even the highest yet reveal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 the earth life of Jesus of Nazareth.

102:8.8 (1128.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3편. 종교 체험의 실체

⇨ 102

유란시아 책

10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103편
종교 체험의 실체

섹션

소개

1. 종교에 관한 철학
2. 종교와 개인
3. 종교와 인류
4. 영적 친교
5. 이상의 기원
6. 철학적 조화
7. 과학과 종교
8. 철학과 종교
9. 종교의 본질

PAPER 103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SECTIONS

Introduction

1. Philosophy of Religion
2. Religion and the Individual
3. Religion and the Human Race
4. Spiritual Communion
5. The Origin of Ideals
6. Philosophic Co-ordination
7. Science and Religion
8. Philosophy and Religion
9. The Essence of Religion

소개

사람의 참된 종교적 반응은 모두, 경배 보조체의 초기 사역으로 후원받고, 지혜 보조체의 검열을 받는다. 사람의 첫 초월정신 재능은, **우주 창조적 영의 거룩한 영** 안에서 인격이 회로화{回路化}되는 재능이며; 신성한 **아들들이 증여되거나 조율사**가 보편적으로 증여되기 훨씬 전에, 이 영향력은, 윤리, 종교, 및 영성{靈性}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낙원 아들이** 증여된 뒤에는, 종교적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의 수용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방된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기여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사고 조율사**는 인간이 가진 더 높은 유형의 종교적 통찰력을 개발시키는 데 점점 더 참여하게 된다. **사고 조율사**는 시공우주의 창문인데, 무한한 **신격**, 즉 **만유의 아버지의** 확실성과 신성{神性}을, 그 창문을 통해서 유한한 피조물이 신앙으로 어렴풋이 볼지도 모른다.

INTRODUCTION

103:0.1 (1129.1) ALL of man's truly religious reactions are sponsored by the early ministry of the adjutant of worship and are censored by the adjutant of wisdom. Man's first supermind endowment is that of personality encirclement in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Creative Spirit; and long before either the bestowals of the divine Sons or the universal bestowal of the Adjusters, this influence functions to enlarge man's viewpoint of ethics, religion, and spirituality. Subsequent to th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e liberated Spirit of Truth makes mighty contributions to the enlargement of the human capacity to perceive religious truths. As evolution advances on an inhabited world, the Thought Adjusters increasing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higher types of human religious insight. The Thought Adjuster is the cosmic window through which the finite creature may faith-glimpse the certainties and divinities of limitless Deity, the Universal Father.

인류의 종교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며; 보편적

103:0.2 (1129.2) The religious tendencies of the

으로 나타나고 외견상 자연적으로 발생되며;원시 종교는 반드시 진화로 유래된다. 자연스런 종교 체험이 계속 진보함에 따라서, 계시가 없다면 느끼게_움직일_행성 진화 과정에, 진리의 주기적 계시가 힘을 실어준다.

오늘날 **유란시아**에는 네 종류의 종교가 있다:

1. 자연 종교, 즉 진화 종교.
2. 초자연 종교, 즉 계시 종교.
3. 실제의 종교, 즉 자연 종교와 초자연 종교가 다양한 정도로 섞여있는, 유행되는 종교.
4. 철학적 종교, 즉 사람이_만들었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해_낸 신학 교리 및 이성으로_창출된 종교.

1. 종교에 관한 철학

사회 집단 또는 인종 집단 가운데서 종교 체험이 일치하는데, 이는 각 개인에게 내주하는 **하나님** 단편이 동일한 본성을 가진 데서 연유한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사심 없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신성{神性}한 존재다. 그러나 인격의 독특성--곧 어떤 두 필사 존재도 똑 같지 않은 것--때문에, 어떤 두 인간도, 자기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성한 영의 안내와 충동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없음이 불가피하다. 한 필사자 집단이 영적 통일성을 체험할 수 있지만, 결코 사상의 획일성을 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종교적 사고{思考}와 체험에 대한 해석의 이런 다양성은, 20세기 신학자와 철학자가 종교에 대해서 500여 가지 서로 다른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한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적 해석에 따른 말로 종교를 정의하며, 따라서 그런 해석은 독특하고, 다른 모든 인간의 종교 철학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한 필사자가 동료 필사자의 종교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런 현상은, 철학적인 종교 해석의 유사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접근하는 비슷한 종교 체험을, 이 두 존재가 겪었음을 의미한다.

너의 종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해도, 네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기중심적인--곧 외부와 담을 쌓고, 이기적이고, 반{反}사회적인--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을 목적으로, 너는 많은 다른 종교 체험(곧 다양한 다른 필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는 지식을 접해야 한다.

human races are innate; they are universally manifested and have an apparently natural origin; primitive religions are always evolutionary in their genesis. As natural religious experience continues to progress, periodic revelations of truth punctuate the otherwise slow-moving course of planetary evolution.

103:0.3 (1129.3) On Urantia, today, there are four kinds of religion:

103:0.4 (1129.4) 1. Natural or evolutionary religion.

103:0.5 (1129.5) 2. Supernatural or revelatory religion.

103:0.6 (1129.6) 3. Practical or current religion, varying degrees of the admixture of natural and supernatural religions.

103:0.7 (1129.7) 4. Philosophic religions, man-made or philosophically thought-out theologic doctrines and reason-created religions.

1. PHILOSOPHY OF RELIGION

103:1.1 (1129.8) The unity of religious experience among a social or racial group derives from the identical nature of the God fragment indwelling the individual. It is this divine in man that gives origin to his unselfish interest in the welfare of other men. But since personality is unique — no two mortals being alike — it inevitably follows that no two human beings can similarly interpret the leadings and urges of the spirit of divinity which lives within their minds. A group of mortals can experience spiritual unity, but they can never attain philosophic uniformity. And this diversity of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thought and experience is shown by the fact that twentieth-century theologians and philosophers have formulated upward of five hundred different definitions of religion. In reality, every human being defines religion in the terms of his own experiential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impulses emanating from the God spirit that indwells him, and therefore must such an interpretation be unique and wholly different from the religious philosophy of all other human beings.

103:1.2 (1130.1) When one mortal is in full agreement with the religious philosophy of a fellow mortal, that phenomenon indicates that these two beings have had a similar *religious experience* touching the matters concerned in their similarity of philosophic religious interpretation.

103:1.3 (1130.2) While your religion is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it is most important that you should be exposed to the knowledge of a vast number of other religious experiences (the diverse interpretations of other and diverse mortals) to the end that you may prevent your religious life from becoming egocentric — circumscribed, selfish, and unsocial.

종교가 처음에는 무언가에 대한 원시적 믿음이고, 가치 추구가 그다음에 뒤따라온다고 가정할 때, 합리주의는 오류를 범한다. 종교는 원래 가치 기준의 추구이며, 그 다음에 해석하는 믿음 체계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믿음--곧 해석--보다 종교적 가치기준--곧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훨씬 쉽다. 이것은 종교가 어떻게 해서 수백 가지 모순되는 신념--곧 신조--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혼란된 형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많이 포기하거나 바꿈에도, 자신의 종교 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종교는, 종교적 믿음에 혁신적 변화가 있음에도 존속한다. 신학은 종교를 산출하지 못하며;종교가 신학 사상을 산출한다.

종교인이 거졌던 것을 너무 깊게 믿어왔다고 해서 종교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데, 이는 종교가 가치기준에 대한 인식 위에 기초하고,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신앙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는 체험과 종교적 사고에 기초하며;신학, 즉 종교에 관한 철학은, 그 체험을 해석하려는 정직한 시도다. 그런 해석적 믿음은 옳거나 옳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진리와 오류의 혼합일 수도 있다.

영적 가치기준을 인식한다는 깨달음은, 관념 작용을 초월하는 체험이다. **하나님**을 의식{意識}하는 것이라고 명명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던 이 “감각”, “느낌”, “직관”, 또는 “체험”을 가리키기 위해서 채택될 수 있는 인간 언어가 전혀 없다. 사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인격있는 존재가 아니지만--곧 **조울사**는 인격이전{人格以前}이지만, 이 **관찰자**는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데, 가장 고상하고 무한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신성{神性}의 향기를 발산한다. **하나님**이 적어도 인격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의식하실 수 없으며, 의식이 없다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일 것이다.

2. 종교와 개인

종교는 인간 정신 속에서 작용하며, 종교가 인간의 의식 속에 나타나기 전에 체험 속에서 인식돼 왔다. 어린아이는 출생을 체험하기 전에 약 아홉 달 동안 실존했다. 그러나 종교의 “출생”은 갑작스럽지 않으며;오히려 점진적인 출현이다. 그럼에도, 곧 “출생일”이 있게 된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즉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육체적 출생의 특징이, “격렬한 산고{産苦}”와 “출산”이라는 기타 비정상상황인 것과 마찬가지로, 허다한 영적 출생에 영의 고뇌가 많이 따르고, 심리적 동요의 흔적이 남는다. 그 밖의 영적 출생은, 영적 체험이 증진됨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장이지만, 의식해서 기울이는 노력과 분명한 개인적 결심 없이는 종교적 발전이 일

103:1.4 (1130.3) Rationalism is wrong when it assumes that religion is at first a primitive belief in something which is then followed by the pursuit of values. Religion is primarily a pursuit of values, and then there formulates a system of interpretative beliefs. It is much easier for men to agree on religious values — goals — than on beliefs — interpretations. And this explains how religion can agree on values and goals while exhibiting the confusing phenomenon of maintaining a belief in hundreds of conflicting beliefs — creeds. This also explains why a given person can maintain his religious experience in the face of giving up or changing many of his religious beliefs. Religion persists in spite of revolutionary changes in religious beliefs. Theology does not produce religion; it is religion that produces theologic philosophy.

103:1.5 (1130.4) That religionists have believed so much that was false does not invalidate religion because religion is founded on the recognition of values and is validated by the faith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Religion, then, is based on experience and religious thought; theology, the philosophy of religion, is an honest attempt to interpret that experience. Such interpretative beliefs may be right or wrong, or a mixture of truth and error.

103:1.6 (1130.5) The realization of the recognition of spiritual values is an experience which is superideational. There is no word in any human language which can be employed to designate this “sense,” “feeling,” “intuition,” or “experience” which we have elected to call God-consciousness. The spirit of God that dwells in man is not personal — the Adjuster is prepersonal — but this Monitor presents a value, exudes a flavor of divinity, which is personal in the highest and infinite sense. If God were not at least personal, he could not be conscious, and if not conscious, then would he be infrahuman.

2. RELIGION AND THE INDIVIDUAL

103:2.1 (1130.6) Religion is functional in the human mind and has been realized in experience prior to its appearance in human consciousness. A child has been in existence about nine months before it experiences *birth*. But the “birth” of religion is not sudden; it is rather a gradual emergence. Nevertheless, sooner or later there is a “birth day.” You do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you have been “born again” — born of the Spirit. Many spiritual births are accompanied by much anguish of spirit and marked psychological perturbations, as many physical births are characterized by a “stormy labor” and other abnormalities of “delivery.” Other spiritual births are a natural and normal growth of the recognition

어나지 않는다. 종교는 결코 소극적 체험, 즉 부정적 태도가 아니다. “종교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위 회심{回心} 체험이라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이런 감화는, 정신의 갈등, 감정의 억압, 및 기질의 동요가 일어난 결과로, 후기 생애에 발생하는 종교적 사건의 특징을 대개 나타낸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의식하면서 자라날 만큼, 부모의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심리적 위기, 감정적 격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동료 필사자들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계시된 종교의 씨가,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진화의 도양에서 싹트며, 이 도양은 아주 일찍부터 사회 의식을 낳는 도덕적 본성이다. 어린이의 도덕적 본성을 처음 자극하는 것은, 남녀, 죄의식, 또는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 공정성, 및 친절을 베풀려는 충동--곧 동료들에게 유익한 사역--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의 도덕적 각성이 성숙될 때, 갈등, 격변, 또는 위기에 속박 받지 않는 종교 생활이 차츰 발달한다.

인간은 누구나, 매우 일찍부터 사리{私利}를_피하는 자극과 이타적 자극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체험하며, 그런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에서 초인적 도움을 구하는 결과로서, **하나님**을_의식하는 첫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의 심리 상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수많은 필사자가 부정적인 까닭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긍정적이라고 할 때, 그의 도덕적 충동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의 힘이 솟아나는 것은, **사고 조율사**가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잘못된 가르침이 없으면, 정상적인 어린이의 정신은, 부정적으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 의식{意識}이 출현함에 따라서, 도덕적 정의와 사회 봉사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종교적 체험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 의지의 결정, 수고, 및 역할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있다.

도덕적 선택은 대개 다소간의 도덕적 갈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서 맨 처음 생기는 바로 이런 갈등은, 자기중심적 충동과 이타주의적 자극 사이에 있다. **사고 조율사**는, 자기중심의 동기를 갖는 인격의 가치기준을 무시하

of supreme values with an enhancement of spiritual experience, albeit no religious development occurs without conscious effort and positive and individual determinations. Religion is never a passive experience, a negative attitude. What is termed the “birth of religion” i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so-called conversion experiences which usually characterize religious episodes occurring later in life as a result of mental conflict, emotional repression, and temperamental upheavals.

103:2.2 (1131.1) But those persons who were so reared by their parents that they grew up in the consciousness of being children of a loving heavenly Father, should not look askance at their fellow mortals who could only attain such consciousness of fellowship with God through a psychological crisis, an emotional upheaval.

103:2.3 (1131.2) The evolutionary soil in the mind of man in which the seed of revealed religion germinates is the moral nature that so early gives origin to a social consciousness. The first promptings of a child's moral nature have not to do with sex, guilt, or personal pride, but rather with impulses of justice, fairness, and urges to kindness — helpful ministry to one's fellows. And when such early moral awakenings are nurtured, there occurs a gradual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life which is comparatively free from conflicts, upheavals, and crises.

103:2.4 (1131.3) Every human being very early experiences something of a conflict between his self-seeking and his altruistic impulses, and many times the first experience of God-consciousness may be attained as the result of seeking for superhuman help in the task of resolving such moral conflicts.

103:2.5 (1131.4) The psychology of a child is naturally positive, not negative. So many mortals are negative because they were so trained. When it is said that the child is positive, reference is made to his moral impulses, those powers of mind whose emergence signals the arrival of the Thought Adjuster.

103:2.6 (1131.5) In the absence of wrong teaching, the mind of the normal child moves positively, in the emergence of religious consciousness, toward moral righteousness and social ministry, rather than negatively, away from sin and guilt. There may or may not be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but there are always present the inevitable decisions, effort, and function of the human will.

103:2.7 (1131.6) Moral choosing is usually accompanied by more or less moral conflict. And this very first conflict in the child mind is between the urges of egoism and the impulses of altruism.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disregard the

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이르고 하늘 나라의 기쁨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타심의 충동을 조금 더 우대하도록 작용한다.

한 도덕적 존재가, 이기적이 되려는 충동에 직면해서 이타적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원시적 종교 체험이다. 어떤 동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으며; 그런 결정은 인간다운 동시에 종교적이다. 그것은 **하나님** 의식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사회에 봉사하려는 충동을 나타내며, 이 충동이 사람의 형제관계의 기초다. 어떤 정신이 자유의지 행위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그런 결정은 종교적 체험이 된다.

그러나 한 어린이가 도덕적 수용력을 얻고, 따라서 이타적 봉사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그는 이미 튼튼하고 잘 통합된 자기중심의 본성을 개발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에 입각한 상황이,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사이에, 즉 “죄 속에 있는 옛 사람”과, 은혜로운 “새 본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론을 낳았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삶에서 매우 일찍 배우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기를_섬기려는 충동을, 자아와--곧 그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이타적이 되려는 의지를, 자신의 바깥에 있는 어떤 영향력--곧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정말로 그런 판단은 옳은데, 이는 이타적인 그런 모든 욕구가, 내주하는 **사교 조율사**의 인도함에서 실제로 기원되기 때문이며, 이 **조율사**는 **하나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런 **영 관찰자**의 자극을, 이타적이 되려는, 즉 동료_피조물에게 신경 쓰려는 충동으로서, 의식 속에서 인식한다. 적어도 이것이 어린이의 정신이 일찍부터 겪는 근본적인 체험이다. 자라는 어린이가 인격 통합을 이루지 못할 때, 이타적 충동은 자신의 복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과도하게 자랄 수도 있다. 잘못 인도된 양심은, 많은 갈등, 염려, 슬픔, 및 끝없는 인간적 불행에 초래할 수 있다.

3. 종교와 인류

영, 꿈, 및 다양한 기타 미신에 대한 믿음은 모두, 원시 종교들의 진화적 기원에 어떤 역할을 했지만, 너희는 씨족 또는 부족의 단결하는 기풍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기 인간 정신의 도덕적 본성에서 생기는, 이기적_이타적 갈등에 도전한 엄밀한 사회 상황이, 집단 관계에서 제시됐다. 원시적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영들을 믿음에도, 여전히 자기 종교의 초점을 씨족에 둔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종교 개념은 처음에는 동물로, 나중에는 초인간이나 **하나님**으로 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토tem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부시먼** 같은 열등한 인종도, 자기_이익과 집단_이익

personality values of the egoistic motive but does operate to place a slight preference upon the altruistic impulse as leading to the goal of human happiness and to the joys of the kingdom of heaven.

103:2.8 (1131.7) When a moral being chooses to be unselfish when confronted by the urge to be selfish, that is primitive religious experience. No animal can make such a choice; such a decision is both human and religious. It embraces the fact of God-consciousness and exhibits the impulse of social service, the basis of the brotherhood of man. When mind chooses a right moral judgment by an act of the free will, such a decision constitutes a religious experience.

103:2.9 (1131.8) But before a child has developed sufficiently to acquire moral capacity and therefore to be able to choose altruistic service, he has already developed a strong and well-unified egoistic nature. And it is this factual situation that gives rise to the theory of the struggle between the “higher” and the “lower” natures, between the “old man of sin” and the “new nature” of grace. Very early in life the normal child begins to learn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103:2.10 (1131.9) Man tends to identify the urge to be self-serving with his ego — himself. In contrast he is inclined to identify the will to be altruistic with some influence outside himself — God. And indeed is such a judgment right, for all such nonself desires do actually have their origin in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and this Adjuster is a fragment of God. The impulse of the spirit Monitor is realized in human consciousness as the urge to be altruistic, fellow-creature minded. At least this is the early and fundamental experience of the child mind. When the growing child fails of personality unification, the altruistic drive may become so overdeveloped as to work serious injury to the welfare of the self. A misguided conscience can become responsible for much conflict, worry, sorrow, and no end of human unhappiness.

3. RELIGION AND THE HUMAN RACE

103:3.1 (1132.1) While the belief in spirits, dreams, and diverse other superstitions all played a part in the evolutionary origin of primitive religions, you should not overlook the influence of the clan or tribal spirit of solidarity. In the group relationship there was presented the exact social situation which provided the challenge to the egoistic-altruistic conflict in the moral nature of the early human mind. In spite of their belief in spirits, primitive Australians still focus their religion upon the clan. In time, such religious concepts tend to personalize, first, as animals, and later, as a superman or as a God. Even such inferior races

의 차이를 인식하며, 세속의 것과 신성시되는 것의 가치를 원시적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은 종교 체험의 근원이 아니다. 인간의 초기 종교에 이 모든 원시적 공헌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없이, 참된 종교적 충동은, 이타적이 되려는 의지를 촉진하는 진짜 영 현존에서 기원되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 즉 비인격적 **마나**에 대한 원시적 믿음은, 후일에 종교가 나타날 것을 예시한다. 그러나 진화하는 종교는 머지않아, 개인이 사회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몸소 희생해야 한다고, 즉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사람에 대한 봉사가 되게 마련이다.

종교는 사람의 환경을 변경시키도록 설계돼 있지만, 오늘날 필사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종교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행할 힘을 잃어버렸다. 환경이 너무나 자주 종교를 지배해 왔다.

어느 시대의 종교에서든지, 지극히 중요한 체험은, 신학적 교의 또는 철학적 이론에 관한 사고{思考}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에 관한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도덕 개념이 마술의 요소를 대체함에 따라서 종교는 순조롭게 진화한다.

사람은, **마나**, 마술, 자연 숭배, 영에 대한 두려움, 및 동물숭배 등의 미신을 거쳐서, 다양한 예식절차로 진화했는데, 그런 예식으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태도는 씨족의 집단 반응이 됐다. 그다음에 이 예식은 부족 믿음으로 집중되고 형태화됐으며, 결국 이 두려움과 신앙이 신{神}들로 인격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적 진화에서 도덕적 요소가 통제로 빠진 적은 없었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자극은 항상 효력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이런 강력한 영향력은, 천 가지의 파괴적 성향과 냉담한 적개심으로 인해 사멸될 위기에 자주 처했음에도, 세월의 변천에서 종교가 살아남도록 보장했다.

4. 영적 친교

사회의 행사와 종교적 모임의 특징적 차이점은, 세속의 모임과는 반대로, 종교적 모임이 교류 분위기로 충만되는 것이다. 인간 연합체는 이런 방법으로 신성한 존재들과 교제하는 느낌을 창출하며, 이것이 집단 숭배의 시발점이다.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초기 유형의 사회 교류였으며, 그래서 초기 종교들은, 예식절차로 바친 제

as the African Bushmen, who are not even totemic in their beliefs, do have a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f-interest and the group-interest, a primitive distinction between the values of the secular and the sacred. But the social group is not the source of religious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influence of all these primitive contributions to man's early religion, the fact remains that the true religious impulse has its origin in genuine spirit presences activating the will to be unselfish.

103:3.2 (1132.2) Later religion is foreshadowed in the primitive belief in natural wonders and mysteries, the impersonal mana. But sooner or later the evolving religion requires that the individual should make some personal sacrifice for the good of his social group, should do something to make other people happier and better. Ultimately, religion is destined to become the service of God and of man.

103:3.3 (1132.3) Religion is designed to change man's environment, but much of the religion found among mortals today has become helpless to do this. Environment has all too often mastered religion.

103:3.4 (1132.4) Remember that in the religion of all ages the experience which is paramount is the feeling regarding moral values and social meanings, not the thinking regarding theologic dogmas or philosophic theories. Religion evolves favorably as the element of magic is replaced by the concept of morals.

103:3.5 (1132.5) Man evolved through the superstitions of mana, magic, nature worship, spirit fear, and animal worship to the various ceremonials whereby the religious attitude of the individual became the group reactions of the clan. And then these ceremonies became focalized and crystallized into tribal beliefs, and eventually these fears and faiths became personalized into gods. But in all of this religious evolution the moral element was never wholly absent. The impulse of the God within man was always potent. And these powerful influences — one human and the other divine — insured the survival of religion throughout the vicissitudes of the ages and that notwithstanding it was so often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a thousand subversive tendencies and hostile antagonisms.

4. SPIRITUAL COMMUNION

103:4.1 (1133.1)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a social occasion and a religious gathering is that in contrast with the secular the religious is pervaded by the atmosphere of *communion*. In this way human association generates a feeling of fellowship with the divine,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group worship. Partaking of a common meal

물의 일부분을 숭배자들이 반드시 먹도록 규정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주(主)의 만찬**이 이런 교류 방식을 유지한다. 교류하는 분위기는, 사리를_피하는 자아와, 내주하는 영{靈} **관찰자**의 이타적 충동의 싸움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위로하는 휴전 기간을 마련해 준다. 이것이 참된 경배에 이르는 전주곡이다--즉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실습하는 것이요, 결국 사람의 형제관계가 출현되게 만든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됐다고 느낄 때, 원시인은 속죄{贖罪}하기 위한, 즉 친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의존했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했으며, 진리가 이상{理想}을 증대시켰고, 이것이 종교인 개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줬는데, 이는 우리의 이상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이상에 맞춰 생활하는 우리의 역량은 오직 산술급수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죄를 인식함이 아니라) 죄의식은, 영적 교류가 단절되거나, 사람이 도덕적 이상{理想}을 낮추는 데서 생긴다.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이 반드시 **하나님** 뜻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점점 더 그를 닮아가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제물과 속죄의 모든 예식절차를 제거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함으로써 즉:피조물_창조주 관계를 자녀_부모 기초 위에 놓음으로써, 이런 모든 허구적 죄의식의 근본과 우주에서의 고독감을 파괴했다. **하나님**은 필사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친밀한 가족 관계에 맞지 않는 모든 예식절차는 영원히 폐기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실제 덕행이나 자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동기{動機}--곧 피조물의 목적과 의지--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을 자녀로 취급하신다. 그 관계는 부모_자녀 관계이며, 신성한 사랑으로 작동된다.

5. 이상의 기원

주로 감정적 두려움에서 유래되는,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저야 한다는 느낌을, 초기의 진화적 정신이 발생시킨다. 사회에 봉사하려는 더 적극적인 충동과 이타주의라는 관념론은,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의 직접 충동에서 파생된다.

was the earliest type of social communion, and so did early religions provide that some portion of the ceremonial sacrifice should be eaten by the worshipers. Even in Christianity the Lord's Supper retains this mode of communion.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on provides a refreshing and comforting period of truce in the conflict of the self-seeking ego with the altruistic urge of the indwelling spirit Monitor. And this is the prelude to true worship —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which eventuates in the emergence of the brotherhood of man.

103:4.2 (1133.2) When primitive man felt that his communion with God had been interrupted, he resorted to sacrifice of some kind in an effort to make atonement, to restore friendly relationship. The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leads to the discovery of truth, and truth augments ideals, and this creates new problems for the individual religionists, for our ideals tend to grow by geometrical progression, while our ability to live up to them is enhanced only by arithmetical progression.

103:4.3 (1133.3) The sense of guilt (not the consciousness of sin) comes either from interrupted spiritual communion or from the lowering of one's moral ideals. Deliverance from such a predicament can only come through the realization that one's highest moral ideals are not necessarily synonymous with the will of God. Man cannot hope to live up to his highest ideals, but he can be true to his purpose of finding God and becoming more and more like him.

103:4.4 (1133.4) Jesus swept away all of the ceremonials of sacrifice and atonement. He destroyed the basis of all this fictitious guilt and sense of isolation in the universe by declaring that man is a child of God; the creature-Creator relationship was placed on a child-parent basis. God becomes a loving Father to his mortal sons and daughters. All ceremonials not a legitimate part of such an intimate family relationship are forever abrogated.

103:4.5 (1133.5) God the Father deals with man his child on the basis, not of actual virtue or worthiness, but in recognition of the child's motivation — the creature purpose and intent. The relationship is one of parent-child association and is actuated by divine love.

5. THE ORIGIN OF IDEALS

103:5.1 (1133.6) The early evolutionary mind gives origin to a feeling of social duty and moral obligation derived chiefly from emotional fear. The more positive urge of social service and the idealism of altruism are derived from the direct impulse of the divine spirit indwelling the human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관념_이상{理想}—곧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희생하려는 충동--은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시인은, 자신에게 매우 가까운 자들, 즉 자신에게 친절한 자들만 이웃으로 간주하며; 종교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이웃 개념은, 씨족, 부족,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온 인류, 심지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정도까지, 이웃에 대한 관점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모든 정상 인간에게는, 이 가르침이 도덕적이라고--즉 옳다고--말해주는 어떤 존재가 들어있다. 이런 이상을 거의 실천하지 않는 사람조차,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시인한다.

모든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이 되려는, 이 보편적 인간 충동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인본주의자는, 이런 충동의 근원이 물질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종교인은, 필사 정신의 정말로 이타적인 충동은, **사고 조율사**가 내부에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자아 의지와 자아 이외의 의지 사이의 이런 초기 갈등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반드시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 정말로 잘 통합된 인격만이, 자아의 열망과 싹트는 사회 의식이 여러 형태로 논쟁하는 것을 중재할 수 있다. 자아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갖고 있다. 어느 쪽도, 개인의 친절과 봉사를 독점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초기 유형의 죄책감이 기원됐다.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자아의 자기 욕구와, 더 높은 자아(신성한 영)의 이타적 충동이, 통합하고 감독하는 인격의 단일화된 의지로 조정되고 절충될 때에만 성취된다.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은, 감정적 충동의 자연스런 증가와, 영적 통찰력--곧 진실된 종교적 숙고--에 입각한 이타적 충동의 도덕적 성장, 이 둘 사이의 싸움을 중재하는 복잡한 문제에 늘 부딪힌다.

자아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자아를 위해서 균등한 유익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시_공간 틀 속에서는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 영원히 산다면 그런 적대감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번의 짧은 인간 생애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순을 언급하면서 말씀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잃게 되지만, 천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얻을 것이다.”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것--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는 것--은 죽기 전과 후에 계속되는 노력이다. 죽은 후의 삶은 본질적인 면에서 필사자 실존 상태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 세상의 삶에서 행하는 선한 모든 것은, 미래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 기여한다. 사람에게 부여된 고귀한 성품의

mind.

103:5.2 (1133.7) This idea-ideal of doing good to others — the impulse to deny the ego something for the benefit of one's neighbor — is very circumscribed at first. Primitive man regards as neighbor only those very close to him, those who treat him neighborly; as religious civilization advances, one's neighbor expands in concept to embrace the clan, the tribe, the nation. And then Jesus enlarged the neighbor scope to embrace the whole of humanity, even that we should love our enemies. And there is something inside of every normal human being that tells him this teaching is moral — right. Even those who practice this ideal least, admit that it is right in theory.

103:5.3 (1134.1) All men recognize the morality of this universal human urge to be unselfish and altruistic. The humanist ascribes the origin of this urge to the natural working of the material mind; the religionist more correctly recognizes that the truly unselfish drive of mortal mind is in response to the inner spirit leadings of the Thought Adjuster.

103:5.4 (1134.2) But man's interpretation of these early conflicts between the ego-will and the other-than-self-will is not always dependable. Only a fairly well unified personality can arbitrate the multiform contentions of the ego cravings and the budding social consciousness. The self has rights as well as one's neighbors. Neither has exclusive claims upon the attention and service of the individual. Failure to resolve this problem gives origin to the earliest type of human guilt feelings.

103:5.5 (1134.3) Human happiness is achieved only when the ego desire of the self and the altruistic urge of the higher self (divine spirit) are coordinated and reconciled by the unified will of the integrating and supervising personality. The mind of evolutionary man is ever confronted with the intricate problem of refereeing the contest between the natural expansion of emotional impulses and the moral growth of unselfish urges predicated on spiritual insight — genuine religious reflection.

103:5.6 (1134.4) The attempt to secure equal good for the self and for the greatest number of other selves presents a problem which cannot always be satisfactorily resolved in a time-space frame. Given an eternal life, such antagonisms can be worked out, but in one short human life they are incapable of solution. Jesus referred to such a paradox when he said: “Whosoever sha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for the sake of the kingdom, shall find it.”

103:5.7 (1134.5) The pursuit of the ideal — the striving to be Godlike — is a continuous effort before death and after. The life after death is no different in the essentials than the mortal existence. Everything we do in this life which is good contributes directly to the enhancement of the future life. Real religion

모든 덕행을, 자연사의 관문을 통과한 결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도덕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필사자가 수명이 다하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수고를 경시하지 않는다. 필사자가 획득한 것은 모두, 첫 단계에 생존하는 불멸 체험을 강화하는 데 직접 기여한다.

사람의 모든 이타적 충동은 단지 자연스런 군집 본능이 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칠 때, 그의 이상주의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자기 혼의 이런 수준 높은 충동이, 자신의 필사 정신에 내주하는 영적 세력에서 나옴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고상하게 되고 크게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은 영원하고 신성한 어떤 존재가 자기 속에 살면서 애쓰고 있음을 일단 완전히 자각하면, 그것이 그를 향상시키고 초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理想}이 초인적으로 기원됐다는 생생한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의 이타적 신념, 즉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느낌을 실체화시킨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서 자유 의지가 있다. 필사적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고한 주권 아래 아무 힘없는 노예가 아니며, 기계적인 시공우주 결정론에서 절망적인 운명에 희생되는 자도 아니다. 사람은 정말로 확실하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이뤄가는 건축가다.

그러나 사람은 강압으로 구원되거나 고귀하게 되지 않는다. 영의 성장은 진화하는 혼 속에서 솟아난다. 강압은 인간성을 비뚤어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육적 강압도 겨우 부정적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참한 체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영적 성장은 모든 외부적 강압이 최소화 될 때 극대화된다. “**주**{主}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 사람은, 가정, 공동체, 교회, 및 국가의 강압이 최소화 될 때 최고로 발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취적 사회집단에서, 가정, 사회 기관, 교회, 및 국가가 나설 자리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종교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그런 집단의 요구에 순응해 왔을 때, 종교적 신념이 진실인가, 그리고 종교 체험이 사실인가에 관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완전히 표현하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도록 장려돼야 한다. 한 종교 집단의 안전은, 신학적으로 동일한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통일됐는가에 달려있다. 종교 집단은, “자유 사상이”가 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신조{信條}로 인한 어떤 압력도 구성원에게 주지 않을 때 큰 희망이 있다.

does not foster moral indolence and spiritual laziness by encouraging the vain hope of having all the virtues of a noble character bestowed upon one as a result of passing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True religion does not belittle man's efforts to progress during the mortal lease on life. Every mortal gain is a direct contribution to the enrichment of the first stages of the immortal survival experience.

103:5.8 (1134.6) It is fatal to man's idealism when he is taught that all of his altruistic impulses are merely the development of his natural herd instincts. But he is ennobled and mightily energized when he learns that these higher urges of his soul emanate from the spiritual forces that indwell his mortal mind.

103:5.9 (1134.7) It lifts man out of himself and beyond himself when he once fully realizes that there lives and strives within him something which is eternal and divine. And so it is that a living faith in the superhuman origin of our ideals validates our belief that we are the sons of God and makes real our altruistic convictions, the feelings of the brotherhood of man.

103:5.10 (1134.8) Man, in his spiritual domain, does have a free will. Mortal man is neither a helpless slave of the inflexible sovereignty of an all-powerful God nor the victim of the hopeless fatality of a mechanistic cosmic determinism. Man is most truly the architect of his own eternal destiny.

103:5.11 (1135.1) But man is not saved or ennobled by pressure. Spirit growth springs from within the evolving soul. Pressure may deform the personality, but it never stimulates growth. Even educational pressure is only negatively helpful in that it may aid in the prevention of disastrous experiences. Spiritual growth is greatest where all external pressures are at a minimum.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Man develops best when the pressures of home, community, church, and state are least. But this must not be construed as meaning that there is no place in a progressive society for home, social institutions, church, and state.

103:5.12 (1135.2) When a member of a social religious group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a group, he should be encouraged to enjoy religious liberty in the full expression of his own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truths of religious belief and the facts of religious experience. The security of a religious group depends on spiritual unity, not on theological uniformity. A religious group should be able to enjoy the liberty of freethinking without having to become “freethinkers.” There is great hope for any church that worships the living God, validates the brotherhood of man, and dares to remove all creedal pressure from its members.

6. 철학적 조화

신학은 인간의 영의 작용과 반응에 대한 연구이며; 신학의 개별 표현에는 심리학과, 신학의 체계적 묘사에는 철학과, 반드시 어느 정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은 결코 학문이 될 수 없다. 신학은 항상 *너의* 종교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다.

사람이 자신의 우주를 *외부*로부터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접근할 때, 다양한 자연 과학을 받아들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내부*에서 접근할 때, 신학과 형이상학을 기원시킨다. 사물과 존재들로 이뤄진 우주에 접근하는, 이런 두 가지 정 반대되는 방법에서 얻은 조사 결과와 교훈 사이에, 처음에 나타나도록 정해진 많은 차이점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후일에 철학이라는 기술이 발달한다.

종교는 영적 관점, 즉 인간 체험의 *내면성*에 대한 자각을 다뤄야 한다. 사람의 영적 본성은, 우주를 밖에서 안으로 뒤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순전히 인격이 체험하는 내면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모든 창조가 본질에서 영적인 듯 보인다는 것이 참말이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감각으로 이뤄진 물질 재능 및 관련된 정신의 인식을 통해서 우주를 분석적으로 조사할 때, 시공우주는 기계적이고 에너지-물질인 것처럼 보인다. 실체를 연구하는 그런 기법은, 우주를 안에서 밖으로 뒤집어보는 것이다.

우주에 대한 논리적이고 모순 없는 철학적 개념은, 유물론 또는 심령술{心靈術}의 가정{假定} 위에 세워질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사고{思考} 체계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왜곡된 상태로 시공우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전자{前者}는 안에서 밖으로 뒤집힌 우주와 접촉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뒤집힌 우주의 본질을 인식한다. 그래서, 과학이든지 종교든지, 독립된 상태에서 그 자체로는 그리고 그 스스로는, 인간 철학과 신성한 계시의 조명의 인도함 없이 보편적 진리 및 관계를 결코 합당하게 깨닫기를 바랄 수 없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자체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항상 정신의 심리과정과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실체에 대한 사람의 외부 체험은, 체험하는 그 인격체의 정신 의식{意識}에 입각한다. 따라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즉 인간의 내적 체험과 외적 체험은, 반드시 정신의 기능과 상호 관련되며, 그들이 의식으로 깨닫는 것에 따라서, 정신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사람은 정신 속에서 물질을 체험하며; 혼{魂} 속에서 영적 실체를 체험하지만, 이 체험을

6. PHILOSOPHIC CO-ORDINATION

103:6.1 (1135.3) Theology is the study of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the human spirit; it can never become a science since it must always be combined more or less with psychology in its personal expression and with philosophy in its systematic portrayal. Theology is always the study of *your* religion; the study of another's religion is psychology.

103:6.2 (1135.4) When man approaches the study and examination of his universe from the *outside*, he brings into being the various physical sciences; when he approaches the research of himself and the universe from the *inside*, he gives origin to theology and metaphysics. The later art of philosophy develops in an effort to harmonize the many discrepancies which are destined at first to appear between the findings and teachings of these two diametrically opposite avenues of approaching th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103:6.3 (1135.5) Religion has to do with the spiritual viewpoint, the awareness of the *insideness* of human experience. Man's spiritual nature affords him the opportunity of turning the universe outside in. It is therefore true that, viewed exclusively from the insideness of personality experience, all creation appears to be spiritual in nature.

103:6.4 (1135.6) When man analytically inspects the universe through the material endowments of his physical senses and associated mind perception, the cosmos appears to be mechanical and energy-material. Such a technique of studying reality consists in turning the universe inside out.

103:6.5 (1135.7) A logical and consistent philosophic concept of the universe cannot be built up on the postulations of either materialism or spiritism, for both of these systems of thinking, when universally applied, are compelled to view the cosmos in distortion, the former contacting with a universe turned inside out, the latter realizing the nature of a universe turned outside in. Never, then, can either science or religion, in and of themselves, standing alone, hope to gain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universal truths and relationships without the guidance of human philosophy and the illumination of divine revelation.

103:6.6 (1136.1) Always must man's inner spirit depend for its expression and self-realization upon the mechanism and technique of the mind. Likewise must man's outer experience of material reality be predicated on the mind consciousness of the experiencing personality. Therefore are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the inner and the outer, human experiences always correlated with the mind function and conditioned, as to their conscious realization, by the mind activity. Man

정신 속에서 의식하게 된다. 지능은 필사자가 겪는 체험 전체를 조화시키고, 항상 조절하고 제한하는 도구다. 에너지_물체와 영 가치기준, 양쪽 모두, 의식이라는 정신 매개체를 통한 해석에 따라서 채색{彩色}된다.

과학과 종교가 더 조화되도록 조정하는 데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간에 개재하는 모론시아 세계의 사물과 존재의 영역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히 무지하기 때문이다. 지방우주는, 실체가 형태화되는 세 가지 정도 또는 단계, 즉: 물질, 모론시아, 및 영으로 이뤄져 있다. 모론시아 견지의 접근은, 자연 과학에서 발견된 것과 종교의 기질의 작용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를 없앤다. 이성은 과학이 이해하는 기법이며; 신앙은 종교가 통찰하는 기법이며; 모타는 모론시아 수준의 기법이다. 모타는 초물질 실체에 대한 감수성인데, 그 내용이 지식_이성이고 그 본질이 신앙_통찰력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성장을 모타가 보정하기 시작한다. 모타는, 물질 인격체가 달성할 수 없는, 서로 틀리게 실체를 인지함을 초월 철학으로 절충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는, 육체로 사는 물질 인생 이후에 살아남은 체험에 입각한다. 그러나 상당히 동떨어진 과학과 종교 분야의 상호작용을 절충하는 어떤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많은 필사자가 인지해 왔으며; 형이상학은 잘_알려진 이런 간격을 연결시키려고, 사람이 무익하게 시도한 결과다. 그러나 인간의 형이상학은, 빛을 비춰주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입증돼 왔다. 형이상학은, 선의{善意}에서 했겠지만, 모론시아 모타의 부재{不在}를 보상하려고 사람이 쓸데없이 수고했음을 나타낸다.

형이상학이 실패했음이 입증됐으며; 사람은 모타를 감지할 수 없다. 계시는, 진리에 대한 모타의 민감성이 물질세계에 없음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진화하는 구체에서 이치를_파짐으로 발달한 형이상학의 혼란을, 계시가 권위있게 밝혀준다.

과학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 즉 에너지_물질의 세계를 사람이 연구하려는 시도이며; 종교는 영적 가치가 있는 시공우주를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며; 철학은,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개념들이 발견한 것들을, 시공우주를 향한 합리적이고 통합된 태도와 비슷한 무엇이 되도록 조직하고 연결시키려는, 인간 정신의 노력으로 발전돼 왔다. 계시로 명료해진 철학은, 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모타를 대신하는 사람의 이성의 대용품--곧 형이상학--이 좌절하고 실패한 처지에서, 만족스럽게 작용한다.

옛날 사람은 에너지 수준과 영 수준을 구분하

experiences matter in his mind; he experiences spiritual reality in the soul but becomes conscious of this experience in his mind. The intellect is the harmonizer and the ever-present conditioner and qualifier of the sum total of mortal experience. Both energy-things and spirit values are colored by their interpretation through the mind media of consciousness.

103:6.7 (1136.2) Your difficulty in arriving at a more harmonious co-ordination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is due to your utter ignorance of the intervening domain of the morontia world of things and beings. The local universe consists of three degrees, or stages, of reality manifestation: matter, morontia, and spirit. The morontia angle of approach erases all divergence between the findings of the physical sciences and the functioning of the spirit of religion. Reason is the understanding technique of the sciences; faith is the insight technique of religion; mota is the technique of the morontia level. Mota is a supermaterial reality sensitivity which is beginning to compensate incomplete growth, having for its substance knowledge-reason and for its essence faith-insight. Mota is a superphilosophical reconciliation of divergent reality perception which is nonattainable by material personalities; it is predicated, in part, on the experience of having survived the material life of the flesh. But many mortals have recognized the desirability of having some method of reconcil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widely separated domains of science and religion; and metaphysics is the result of man's unavailing attempt to span this well-recognized chasm. But human metaphysics has proved more confusing than illuminating. Metaphysics stands for man's well-meant but futile effort to compensate for the absence of the mota of morontia.

103:6.8 (1136.3) Metaphysics has proved a failure; mota, man cannot perceive. Revelation is the only technique which can compensate for the absence of the truth sensitivity of mota in a material world. Revelation authoritatively clarifies the muddle of reason-developed metaphysics on an evolutionary sphere.

103:6.9 (1136.4) Science is man's attempted study of his physical environment, the world of energy-matter; religion is man's experience with the cosmos of spirit values; philosophy has been developed by man's mind effort to organize and correlate the findings of these widely separated concepts into something like a reasonable and unified attitude toward the cosmos. Philosophy, clarified by revelation, functions acceptably in the absence of mota and in the presence of the breakdown and failure of man's reason substitute for mota — metaphysics.

103:6.10 (1136.5) Early man did not differentiate

지 않았다. 수학적인 것과 의지가 있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처음 시도한 이는, 보라색 인종과 그들의 **안드족속** 후계자들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은, 생명 없는 것과 생명 있는 것을 구별한, 아주 초기의 **그리스인**과 **수메르인**의 발자취를 점점 더 따라갔다. 그리고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철학은 영개념과 에너지 개념 사이의 계속 넓어지는 간격에 다리를 놓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공간 시대에, 이런 여러 차이점은 **지존자** 안에서 조화된다.

상상과 추측은 과학의 범위 확장에 유용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이성{理性}에 기초해야 한다. 이성은 안정시키는 영향력이고 도와주는 시녀{侍女}지만, 종교는 영원히 신앙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과학과 종교라고 잘못 부르는 부당한 해석이 항상 존재해 왔고, 또 언제든지 존재할 것이다.

과학에 대한 어설픈 파악, 종교에 대한 어렵스런 매달림, 그리고 수포로 돌아간 형이상학의 시도로부터, 사람은 철학의 뼈대를 세우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_중요하고 필수적인 형이상학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형이상학이 물리계와 영계 사이의 모론시아 간격에 다리를 놓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현대인은 자신과 우주에 대해 훌륭하고 매력 있는 철학을 정말로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필사적 사람은 모론시아 정신 및 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우주에 대한 논리적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주에서 확실하고 안정된 자기 자리를 만족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토록 다급하게 필요한 이런 개념 자료의 결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이다.

계시는, 진화하는 사람이 모론시아 간격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모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과 이성은, 논리적 우주를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다. 모타의 통찰력이 없으면, 필사적 사람은 물질 세계의 현상에서, 선, 사랑, 및 진리를 식별할 수 없다.

사람의 철학은, 물질 세계를 향해서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 합리주의적이 되거나 *자연주의적*이 된다. 영적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기울어질 때, 철학은 *이상주의적*이 되거나 신비적이 되기도 한다. 형이상학에 기댈 정도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철학은 반드시 *회의적인*, 혼란된 상태가 된다. 지난 시절에, 사람의 지식과 지적 평가 대부분은 이런 세 가지 감지의 왜곡 가운데 하나에 빠져들었다. 철학은 감히 직선형 방식의 논리로 실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철학은, 실체가 타원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 개념이 본질적으로 구부러져있는 것을 간과해서 결론 안 된다.

필사적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

between the energy level and the spirit level. It was the violet race and their Andite successors who first attempted to divorce the mathematical from the volitional. Increasingly has civilized man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e earliest Greeks and the Sumerians who distinguished between the inanimate and the animate. And as civilization progresses, philosophy will have to bridge ever-widening gulfs between the spirit concept and the energy concept. But in the time of space these divergencies are at one in the Supreme.

103:6.11 (1137.1) Science must always be grounded in reason, although imagination and conjecture are helpful in the extension of its borders. Religion is forever dependent on faith, albeit reason is a stabilizing influence and a helpful handmaid. And always there have been, and ever will be, misleading interpretations of the phenomena of both the natural and the spiritual worlds, sciences and religions falsely so called.

103:6.12 (1137.2) Out of his incomplete grasp of science, his faint hold upon religion, and his abortive attempts at metaphysics, man has attempted to construct his formulations of philosophy. And modern man would indeed build a worthy and engaging philosophy of himself and his universe were it not for the breakdown of his all-important and indispensable metaphysical connection between the worlds of matter and spirit, the failure of metaphysics to bridge the morontia gulf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Mortal man lacks the concept of morontia mind and material; and *revelation* is the only technique for atoning for this deficiency in the conceptual data which man so urgently needs in order to construct a logical philosophy of the universe and to arrive at a satisfying understanding of his sure and settled place in that universe.

103:6.13 (1137.3) Revelation is evolutionary man's only hope of bridging the morontia gulf. Faith and reason, unaided by mota, cannot conceive and construct a logical universe. Without the insight of mota, mortal man cannot discern goodness, love, and truth in the phenomena of the material world.

103:6.14 (1137.4) When the philosophy of man leans heavily toward the world of matter, it becomes rationalistic or *naturalistic*. When philosophy inclines particularly toward the spiritual level, it becomes *idealistic* or even mystical. When philosophy is so unfortunate as to lean upon metaphysics, it unfailingly becomes *skeptical*, confused. In past ages, most of man's knowledge and intellectual evaluations have fallen into one of these three distortions of perception. Philosophy dare not project its interpretations of reality in the linear fashion of logic; it must never fail to reckon with the elliptic symmetry of reality and with the essential curvature of all relation concepts.

103:6.15 (1137.5) The highest attainable philosophy of

은, 과학의 이성애, 종교의 신앙애, 그리고 계시가 제공하는,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에 논리적으로 기초해야 한다. 이런 통합으로 사람은, 적당한 형이상학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모론시아의 모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

7. 과학과 종교

과학은 이성으로 인해 지속되고, 종교는 신앙으로 인해 지속된다. 신앙은, 이성애 입각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이며; 논리와 무관함에도, 건전한 논리로 인해 촉진된다. 이상적 철학조차 신앙을 조성할 수 없으며; 신앙은 정말로 과학과 함께 그런 철학의 바로 그 근원이다. 신앙, 즉 인간의 종교적 통찰력은 오직 계시함으로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조율사**로서 현존하심을, 필사자가 몸소 체험해야만 확실히 증진될 수 있다.

참된 구원은, 물질과 일체화된 상태에서부터, 모론시아 접촉이 있는 영역을 거쳐서, 영적 상호관계가 있는 높은 우주 상태에 이르기까지, 필사 정신을 신성하게 진화시키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화에서, 물질적인 직관 본능이 이성애 의거한 지식의 출현보다 앞서는 것처럼, 영적인 직관 통찰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론시아 및 영 판단력이 나중에 출현하고 하늘에서 진화하는 숭고한 계획표를 체험할 것을 미리 알리는데, 이 진화는, 일시적 존재인 사람의 잠재성을 사람의 실체성 및 신성{神性}으로, 영원한 존재인 **낙원** 완결성 취자로 변환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얻으려고 안쪽으로 그리고 **낙원** 쪽으로 손을 뻗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물질 시공우주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외계{外界} 쪽으로 손을 뻗고 있을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이 우주와 연방우주를 상승하는 체험은, 적지 않게 에너지 변형과 물질적 변질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신격**은 통일체이고, **신격**의 통일체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가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주 통제관**과 **낙원 섬**의 에너지 실상을 인지하며, 한편 이 두 국면의 우주 실체는, **공동 행위자**와 정신의 연관성에서 서로 완전하게 관련되고,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신격** 속에서 유한한 수준으로 통합된다.

체험 철학의 증제로 과학적 태도와 종교적 통찰력을 연합하는 것은, 사람의 긴 **낙원**-상승{上昇} 체험의 일부분이다. 수학이 추정 한 것과 통찰력이 확실히 얻은 것은, **지존자**라는 최고 달성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수준의 체험에서, 정신 논리의 조화시키는 역할을 항상 필요로 할 것이다.

mortal man must be logically based on the reason of science, the faith of religion, and the truth insight afforded by revelation. By this union man can compensate somewhat for his failure to develop an adequate metaphysics and for his inability to comprehend the mota of the morontia.

7. SCIENCE AND RELIGION

103:7.1 (1137.6) Science is sustained by reason, religion by faith. Faith, though not predicated on reason, is reasonable; though independent of logic, it is nonetheless encouraged by sound logic. Faith cannot be nourished even by an ideal philosophy; indeed, it is, with science, the very source of such a philosophy. Faith, human religious insight, can be surely instructed only by revelation, can be surely elevated only by personal mortal experience with the spiritual Adjuster presence of the God who is spirit.

103:7.2 (1137.7) True salvation is the technique of the divine evolution of the mortal mind from matter identification through the realms of morontia liaison to the high universe status of spiritual correlation. And as material intuitive instinct precedes the appearance of reasoned knowledge in terrestrial evolution, so does the manifestation of spiritual intuitive insight presage the later appearance of morontia and spirit reason and experience in the supernal program of celestial evolution, the business of transmuting the potentials of man the temporal into the actuality and divinity of man the eternal, a Paradise finaliter.

103:7.3 (1138.1) But as ascending man reaches inward and Paradiseward for the God experience, he will likewise be reaching outward and spaceward for an energy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cosmos. The progression of science is not limited to the terrestrial life of man; his universe and superuniverse ascension experience will to no small degree be the study of energy transmutation and material metamorphosis. God is spirit, but Deity is unity, and the unity of Deity not only embraces the spiritual valu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but is also cognizant of the energy facts of the Universal Controller and the Isle of Paradise, while these two phases of universal reality are perfectly correlated in the mind relationships of the Conjoint Actor and unified on the finite level in the emerg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103:7.4 (1138.2) The union of the scientific attitude and the religious insight by the mediation of experiential philosophy is part of man's long Paradise-ascension experience. The approximations of mathematics and the certainties of insight will always require the harmonizing function of mind logic on all levels of experience short of the maximum attainment of the Supreme.

그러나 한 인격의 과학적 면과 종교적 면 양쪽이 진리에 지배되지 못하면, 즉 진리가 무슨 결론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논리는 과학의 연구결과와 종교의 통찰력을 조화시키기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논리는 철학의 기법이요 그 표현 방법이다. 참된 과학의 영역에서, 이성온 진실된 논리를 항상 쾌히 받아들이며; 참된 종교 영역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과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신앙이 지극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신앙은 내부적 관점의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논리가 있다.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며; 안에서 밖으로 보면, 바로 그 우주는 온통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성은 물질을 자각함에서 자라나고, 신앙은 영적 자각에서 자라나지만, 논리는 계시로 강화된 철학의 중재를 통해서 안쪽의 관점과 바깥쪽의 관점 양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과학과 종교의 안정에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 양쪽은, 철학의 논리와 공동으로 접촉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하게 되고 회의{懷疑}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른다.

발달하는 과학과 종교 양쪽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탐색과 담대한 자아 비판, 즉 진화하는 상태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자각하는 것이다. 과학과 종교의 스승들은, 너무 과잉된 자신감과 독단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학과 종교는 그것들이 가진 사실에 대해 자체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사실의 무대에서 떠나는 순간, 이성은 기권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논리라는 짧은 풀 속으로 급속도로 타락한다.

진리-곧 시공우주 관계, 우주 실상, 및 영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진리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최선이고, 계시로 비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계시는 과학도 종교도 창시하지 않으며; 계시의 역할은 과학과 종교를 실체의 진리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계시가 없을 때, 또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할 때, 필사적 사람은, 항상, 자신이 만든 쓸데없는 형이상학의 손짓에 도움을 청했는데, 형이상학은 인간에게 진리의 계시 또는 모론시아 인격의 모타를 대신하는 유일한 대용품이다.

물질 세계를 다루는 과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영적 체험의 종교는, 과학 시대의 문명의 복잡성 속에서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형제애를 자극하는 근원이다. 형이상학이, 그러나 더 확실하게는 계시가, 과학과 종교, 이 둘을 발전하기 위해 공통으로 만나는 토대를 제공하며, 분리돼 있으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이런 사고 분야들을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시켜서, 과학적으로 안정되고 종교적으로 확실한, 잘 균형 잡힌 철학이 되

103:7.5 (1138.3) But logic can never succeed in harmonizing the findings of science and the insights of religion unless both the scientific and the religious aspects of a personality are truth dominated, sincerely desirous of following the truth wherever it may lead regardless of the conclusions which it may reach.

103:7.6 (1138.4) Logic is the technique of philosophy, its method of expression. Within the domain of true science, reason is always amenable to genuine logic; within the domain of true religion, faith is always logical from the basis of an inner viewpoint, even though such faith may appear to be quite unfounded from the inlooking viewpoint of the scientific approach. From outward, looking within, the universe may appear to be material; from within, looking out, the same universe appears to be wholly spiritual. Reason grows out of material awareness, faith out of spiritual awareness, but through the mediation of a philosophy strengthened by revelation, logic may confirm both the inward and the outward view, thereby effecting the stabilization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Thus, through common contact with the logic of philosophy, may both science and religion become increasingly tolerant of each other, less and less skeptical.

103:7.7 (1138.5) What both developing science and religion need is more searching and fearless self-criticism, a greater awareness of incompleteness in evolutionary status. The teacher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often altogether too self-confident and dogmatic. Science and religion can only be self-critical of their facts. The moment departure is made from the stage of facts, reason abdicates or else rapidly degenerates into a consort of false logic.

103:7.8 (1138.6) The truth — an understanding of cosmic relationships, universe facts, and spiritual values — can best be had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and can best be criticized by revelation. But revelation originates neither a science nor a religion; its function is to co-ordinate both science and religion with the truth of reality. Always, in the absence of revelation or in the failure to accept or grasp it, has mortal man resorted to his futile gesture of metaphysics, that being the only human substitute for the revelation of truth or for the mota of morontia personality.

103:7.9 (1139.1) The science of the material world enables man to control, and to some extent dominate, his physical environment. The religion of the spiritual experience is the source of the fraternity impulse which enables men to live together in the complexities of the civilization of a scientific age. Metaphysics, but more certainly revelation, affords a common meeting ground for the discoverie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nd makes possible the human attempt logically to

도록 만드는 인간의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필사자의 신분에서는, 아무 것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과학과 종교 둘 다 가정(假定)에 입각한다. 모론시아 수준에서, 과학과 종교의 여러 가정은, 모타 논리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다. 최고 상태인 영적 수준에서는, 실제로 실체를 체험하고 실체와 함께 체험하기 전에, 유한한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지만; 그럴 때에도, 유한한 상태를 뛰어넘어 증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임에도, 사람의 정신 재능을 구성하는 실체에 대한 감수성을 이용해서 받아들인, 어떤 여러 가정에 입각한다. 과학은: 물질, 움직임, 및 생명 이 세 가지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자랑스런 이성작용의 경력을 시작한다. 종교는: 정신, 영, 및 우주--**곧 지존하신 분**-- 이 세 가지가 정당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과학은, 공간에서 시간세계의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수학을 생각하는 분야가 된다. 종교는 유한한 속세의 영 뿐만 아니라, 영원한 최상의 영을 다루고자 한다. 오직 모타를 오랫동안 겪는 체험을 통해서만, 우주를 감지하는 이런 두 극단인, 기원, 기능, 관계, 실체, 및 운명을 유사하게 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일곱 으뜸 영**의 순회활동에서, 에너지와 영의 확산이 최고로 조화돼 있으며; **지존자의 신격** 속에서, 에너지와 영이 처음으로 통합되며; **자존자(自存者)**이신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성 안에서, 최종으로 통일된다.

이성은, 에너지와 물질로 이뤄진 물리 세계에서, 그리고 그 세계와 함께 겪는 체험에 관해서, 의식(意識)이 내리는 결정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신앙**은 영적 의식--곧 필사자가 달리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논리**는, 신앙과 이성이 통일돼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며, 필사 존재를 구성하는, 정신 재능, 즉 사물, 의미, 및 가치기준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초한다.

영적 실체가 있음을 **사고 조율사**의 현존이 실제로 증명하지만, 이 현존의 타당성은, 외부 세계에 증명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에게만 증명될 수 있다. **조율사**를 의식하는 것은,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선을 초월정신이 감지하는 것, 그리고 인격의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 기초한다.

과학은 물질 세계를 발견하고, 종교는 그 세계를 평가하고, 철학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correlate these separate but interdependent domains of thought into a well-balanced philosophy of scientific stability and religious certainty.

103:7.10 (1139.2) In the mortal state, nothing can be absolutely proved;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predicated on assumptions. On the morontia level, the postulate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capable of partial proof by mota logic. On the spiritual level of maximum status, the need for finite proof gradually vanishes before the actual experience of and with reality; but even then there is much beyond the finite that remains unproved.

103:7.11 (1139.3) All divisions of human thought are predicated on certain assumptions which are accepted, though unproved, by the constitutive reality sensitivity of the mind endowment of man. Science starts out on its vaunted career of reasoning by *assuming* the reality of three things: matter, motion, and life. Religion starts out with the assumption of the validity of three things: mind, spirit, and the universe — the Supreme Being.

103:7.12 (1139.4) Science becomes the thought domain of mathematics, of the energy and material of time in space. Religion assumes to deal not only with finite and temporal spirit but also with the spirit of eternity and supremacy. Only through a long experience in mota can these two extremes of universe perception be made to yield analogous interpretations of origins, functions, relations, realities, and destinies. The maximum harmonization of the energy-spirit divergence is in the encirclement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first unification thereof, in the Deity of the Supreme; the finality unity thereof, in the infin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I AM.

103:7.13 (1139.5) *Reason* is the act of recognizing the conclusions of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the experience in and with the physical world of energy and matter. *Faith* is the act of recognizing the validity of spiritual consciousness — something which is incapable of other mortal proof. *Logic* is the synthetic truth-seeking progression of the unity of faith and reason and is founded on the constitutive mind endowments of mortal beings, the innate recognition of things, meanings, and values.

103:7.14 (1139.6) There is a real proof of spiritual reality in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 but the validity of this presence is not demonstrable to the external world, only to the one who thus experiences the indwelling of God. The consciousness of the Adjuster is based on the intellectual reception of truth, the supermind perception of goodness, and the personality motivation to love.

103:7.15 (1139.7) Science discovers the material world, religion evaluates it, and philosophy

과학의 물질적 관점과 종교의 영적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역사는, 과학과 종교가 결코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8. 철학과 종교

과학과 철학이 모두 자체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더라도, 오직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몸소 겪는 종교 체험만이, 인격있는 그런 최상의 **신격**이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를 그렇게 육신화하는 기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철학적 가정은 종교의 실체가 된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체험하는 것에 관한 혼동은, 분리된 개인들이, 그리고 다른 종족 사람들이 그 체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진술하는 데서 발생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며, 때로는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불합리하다.

선하고 고상한 남자가 아내와 더할 나위 없는 사랑에 빠지지만, 부부 애정 심리학의 필기시험에서 도저히 만족스럽게 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다른 남자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시험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통과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참된 본성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완전치 못하다고 해서, 그의 사랑의 실체 또는 진심을 조금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곧 신앙으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체험의 실체가, 과학의 의혹을 품는 암시, 논리의 트집 잡기, 철학의 가정, 또는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를 창설할 수 있는 선의를 지닌 혼들의 영리한 제안으로 인해, 어떤 면에서도 줄어들거나 손상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의 확신은, 의심하는 유물론자의 불확신으로 인해 교란돼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체험을 겪은 신자의 견고한 신앙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믿지 않는 자의 불확신에 강하게 도전해야 한다.

철학이 과학과 종교 모두에게 가장 훌륭하게 공헌하려면, 유물론과 범신론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만 할 것이다. 인격이라는 --변화에 직면해서도 불변하는-- 실체를 인식하는 철학만이,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물질 과학과 영적 종교를 다루는 이론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이바지할 수 있다. 계시는 진화하는 철학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endeavors to interpret its meanings while coordinating the scientific material viewpoint with the religious spiritual concept. But history is a realm in which science and religion may never fully agree.

8. PHILOSOPHY AND RELIGION

103:8.1 (1140.1) Although both science and philosophy may assume the probability of God by their reason and logic, only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a spirit-led man can affirm the certainty of such a supreme and personal Deity. By the technique of such an incarnation of living truth the philosophic hypothesis of the probability of God becomes a religious reality.

103:8.2 (1140.2) The confusion about the experience of the certainty of God arises out of the dissimilar interpretations and relations of that experience by separate individuals and by different races of men. The experiencing of God may be wholly valid, but the discourse *about* God, being intellectual and philosophical, is divergent and oftentimes confusingly fallacious.

103:8.3 (1140.3) A good and noble man may be consummately in love with his wife but utterly unable to pass a satisfactory written examination on the psychology of marital love. Another man, having little or no love for his spouse, might pass such an examination most acceptably. The imperfection of the lover's insight into the true nature of the beloved does not in the least invalidate either the reality or sincerity of his love.

103:8.4 (1140.4) If you truly believe in God — by faith know him and love him — do not permit the reality of such an experience to be in any way lessened or detracted from by the doubting insinuations of science, the caviling of logic, the postulates of philosophy, or the clever suggestions of well-meaning souls who would create a religion without God.

103:8.5 (1140.5) The certainty of the God-knowing religionist should not be disturbed by the uncertainty of the doubting materialist; rather should the uncertainty of the unbeliever be mightily challenged by the profound faith and unshakable certainty of the experiential believer.

103:8.6 (1140.6) Philosophy, to be of the greatest service to both science and religion, should avoid the extremes of both materialism and pantheism. Only a philosophy which recognizes the reality of personality — permanence in the presence of change — can be of moral value to man, can serve as a liaison between the theories of material science and spiritual religion. Revelation is a compensation for the frailties of evolving philosophy.

9. 종교의 본질

신학은 종교의 지적 내용을 취급하며, 형이상학은(계시는) 철학 양상을 취급한다. 종교 체험은 종교의 영적 내용이다. 종교의 지적 내용에 신화{神話} 같은 번덕과 심리학적 망상이 있고, 형이상학의 잘못된 가정과 자아를_기만하는 기법, 종교의 철학적 내용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사회경제적 곡해에도, 개인적 종교에서 얻는 영적 체험은 여전히 참되고 정당하다.

종교는, 생각하기뿐만 아니라, 느끼기, 행하기, 및 살아가기와 관계가 있다. 생각하기는, 물질 생활과 더 가깝게 연관돼 있고, 온통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이성과 과학이라는 사실에 지배를 받고, 영의 영역을 향한 비물질 범위에서는 진리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신학이 아무리 가공적(架空的)이고 잘못됐더라도, 사람의 종교는 전적으로 진실에서 우러나고 영구히 참될지도 모른다.

본래 형태의 **불교**는, **유란시아**의 진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하나님** 없이 이뤄진 최고의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이 신앙이 발전하자, 신(神)이 없는 상태로 머물지는 않았다. 신앙이 없는 종교는 모순이며; **하나님** 없는 종교는 철학적 모순이고 지적 불합리다.

자연 종교가 마술과 신화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후대의 계시 종교의 실체와 진리, 그리고 **예수**의 종교인 구원을 완성한 복음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은 마침내, 마술적 미신, 신화적 환상, 및 전통적 독단주의의 사슬을 벗겨버렸다. 그러나 초기의 이런 마술과 신화는, 초물질적 가치기준과 존재들의 실존 및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나중에 나타난 뛰어난 종교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길을 예비했다.

종교 체험이 비록 순수한 영적 주관적 현상일지라도, 그런 체험은, 우주의 객관적 실체의 가장 높은 영역을 향한,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종교 철학의 이상(理想)은, 온갖 우주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이요_신뢰다. 그런 참다운 종교 체험은, 이상주의적 욕구를 철학적으로 객관화한 것을 훨씬 초월하며; 그런 체험은, 실제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만 관여한다. 그런 종교의 특징은: 최상의 **신격**을 믿는 신앙, 영원히 생존한다는 희망, 그리고 사랑, 특히 동료에 대한 사랑이다.

신학이 종교를 지배할 때 종교는 사라지며; 생

9. THE ESSENCE OF RELIGION

103:9.1 (1140.7) Theology deals with the intellectual content of religion, metaphysics (revelation) with the philosophic aspects. Religious experience is the spiritual content of religion. Notwithstanding the mythologic vagaries and the psychologic illusions of the intellectual content of religion, the metaphysical assumptions of error and the techniques of self-deception, the political distortions and the socioeconomic perversions of the philosophic content of religio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personal religion remains genuine and valid.

103:9.2 (1140.8) Religion has to do with feeling, acting, and living, not merely with thinking. Thinking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material life and should be in the main, but not altogether, dominated by reason and the facts of science and, in its nonmaterial reaches toward the spirit realms, by truth. No matter how illusory and erroneous one's theology, one's religion may be wholly genuine and everlastingly true.

103:9.3 (1141.1) Buddhism in its original form is one of the best religions without a God which has arisen throughout all the evolutionary history of Urantia, although, as this faith developed, it did not remain godless. Religion without faith is a contradiction; without God, a philosophic inconsistency and an intellectual absurdity.

103:9.4 (1141.2) The magical and mythological parentage of natural religion does not invalidate the reality and truth of the later revelational religions and the consummate saving gospel of the religion of Jesus. Jesus' life and teachings finally divested religion of the superstitions of magic, the illusions of mythology, and the bondage of traditional dogmatism. But this early magic and mythology very effectively prepared the way for later and superior religion by assuming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supermaterial values and beings.

103:9.5 (1141.3) Although religious experience is a purely spiritual subjective phenomenon, such an experience embraces a positive and living faith attitude toward the highest realms of universe objective reality. The ideal of religious philosophy is such a faith-trust as would lead man unqualifiedly to depend upon the absolute love of the infinite Fath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Such a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far transcends the philosophic objectification of idealistic desire; it actually takes salvation for granted and concerns itself only with learning and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Paradise. The earmarks of such a religion are: faith in a supreme Deity, hope of eternal survival, and love, especially of one's fellows.

103:9.6 (1141.4) When theology masters religion,

명이 아니라 교리가 된다. 신학의 사명은, 단지 개인이 영적 체험을 자아_의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신학은, 종교의 체험적 주장을 정의하고, 명료하게 하고, 해석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종교적 노력인데, 이 주장은 결국 살아있는 신앙으로만 입증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고등 철학에서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신앙과 결합하게 된다. 이성, 지혜, 및 신앙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달성이다. 이성은, 사실의 세계, 즉 사물을 사람에게 소개하며; 지혜는, 진리의 세계, 즉 관계를 그에게 소개하며; 신앙은, 신성{神性}의 세계로, 즉 영적 체험으로 사람을 이끈다.

신앙은, 이성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아주 기꺼이 이성을 옮겨주고, 그 후에는 철학 한계 끝에 도달할 때까지 지혜와 동행하며; 그 다음에 신앙은, 오직 **진리**만 따라가면서, 무한하고 끝나지_않는 우주 여행을 감히 시작한다.

과학(곧 지식)은, 이성이 타당하다는, 우주가 납득될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假定}(곧 보조 영)에 기초한다. 철학(곧 조화된 납득)은, 지혜가 타당하다는, 물질 우주가 영적 존재와 조화될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곧 지혜의 기질)에 기초한다. 종교(곧 몸소 영적으로 체험하는 진리)는, 신앙이 타당하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곧 **사고 조율사**)에 기초한다.

필사 인생의 실체를 충분히 깨닫는 것은, 이성, 지혜, 및 신앙, 이 세 가지 가정을 점진적으로 가까이 믿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 그런 인생은, 진리에 자극받고 사랑이 지배하는 인생이며; 이것들은, 실존한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 시공우주 실체의 이상{理想}이다.

이성이 일단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나면, 이성은 지혜를 드러내며; 지혜가, 옳고 그름, 즉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선택하면, 지혜는 영이 인도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신, 혼, 및 영의 기능은 늘 가깝게 연합하고,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성은 사실에 관한 지식을; 지혜는 철학과 계시를; 신앙은 생생한 영적 체험을 다룬다.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달성하고, 영적 사랑으로 선행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신앙은, 신성한 현존이 주는 신비스런 느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한다. 신앙은 그 감정적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참 종교는, 만족스런 느낌일 뿐만 아니라, 믿고 아는 체험이다.

종교 체험에는 영적 내용에 비례하는 실체가 있으며, 그런 실체는, 이성, 과학, 철학, 지혜, 그리고 인간의 기타 모든 성취를 초월한다. 그런 체험으로 얻은 확신은 무너질 수 없으며; 종교 생활의

religion dies; it becomes a doctrine instead of a life. The mission of theology is merely to facilitate th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Theology constitutes the religious effort to define, clarify, expound, and justify the experiential claims of religion, which, in the last analysis, can be validated only by living faith. In the higher philosophy of the universe, wisdom, like reason, becomes allied to faith. Reason, wisdom, and faith are man's highest human attainments. Reason introduces man to the world of facts, to things; wisdom introduces him to a world of truth, to relationships; faith initiates him into a world of divinity, spiritual experience.

103:9.7 (1141.5) Faith most willingly carries reason along as far as reason can go and then goes on with wisdom to the full philosophic limit; and then it dares to launch out upon the limitless and never-ending universe journey in the sole company of TRUTH.

103:9.8 (1141.6) Science (knowledge) is founded on the inherent (adjutant spirit) assumption that reason is valid, that the universe can be comprehended. Philosophy (co-ordinate comprehension) is founded on the inherent (spirit of wisdom) assumption that wisdom is valid, that the material universe can be co-ordinated with the spiritual. Religion (the truth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s founded on the inherent (Thought Adjuster) assumption that faith is valid, that God can be known and attained.

103:9.9 (1141.7)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mortal life consists in a progressive willingness to believe these assumptions of reason, wisdom, and faith. Such a life is one motivated by truth and dominated by love; and these are the ideals of objective cosmic reality whose existence cannot be materially demonstrated.

103:9.10 (1142.1) When reason once recognizes right and wrong, it exhibits wisdom; when wisdom chooses between right and wrong, truth and error, it demonstrates spirit leading. And thus are the functions of mind, soul, and spirit ever closely united and functionally interassociated. Reason deals with factual knowledge; wisdom, with philosophy and revelation; faith, with living spiritual experience. Through truth man attains beauty and by spiritual love ascends to goodness.

103:9.11 (1142.2) Faith leads to knowing God, not merely to a mystical feeling of the divine presence. Faith must not be overmuch influenced by its emotional consequences. True religion is an experience of believing and knowing as well as a satisfaction of feeling.

103:9.12 (1142.3) There is a reality in religious experience that is proportional to the spiritual content, and such a reality is transcendent to reason, science, philosophy, wisdom, and all other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그런 지식의 확실성은 초인적이며;그 만족감은 최고로 신성하고, 그 용기는 굴하지 않으며, 그 헌신은 주저함이 없고, 그 충성심은 더할 나위 없으며, 그 운명은 최종적이다--즉 영원하고, 궁극적이며, 보편적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human achievements. The convictions of such an experience are unassailable; the logic of religious living is incontrovertible; the certainty of such knowledge is superhuman; the satisfactions are superbly divine, the courage indomitable, the devotions unquestioning, the loyalties supreme, and the destinies final — eternal, ultimate, and universal.

103:9.13 (1142.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4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 103

유란시아 책

10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4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섹션

소개

1. 유란시아의 삼위일체 개념
2.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수의 신격
3. 삼위일체와 삼중체
4. 일곱 삼중체
5. 삼극체

소개

게시된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진화 종교의 삼원소{三元素} 믿음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삼원소 개념은, 많은 암시적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주로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된 것 때문에, 어떤 발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받침점이 움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원시인이 오랫동안 셋 이상을 셀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과거와 현재,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특정한 자연적 쌍을 제외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삼원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이다. 승리자에게 세 번 환호한다. 죽은 사람을 셋째 날에 묻으며, 물로 세 번 씻음으로써 유령을 위로한다.

인간 체험에서 이런 자연스런 연결이 이뤄진 결과로, 삼원소는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됐고, **낙원의 삼위일체 신격들**, 또는 그들의 어떤 대리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인류에게 제시돼 왔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인, 힌두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바벨론인, 로마인, 및 스칸디나비아인** 전체가, 삼원소 신(神)들을 소유했지만, 이것들은 아직 참된 삼자일체가 아니었다. 삼원소 신격들은

PAPER 104
GROWTH OF THE TRINITY
CONCEPT

SECTIONS

Introduction

1. Urantian Trinity Concepts
2. Trinity Unity and Deity Plurality
3. Trinities and Triunities
4. The Seven Triunities
5. Triodities

INTRODUCTION

104:0.1 (1143.1) THE Trinity concept of revealed religion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triad beliefs of evolutionary religions. The ideas of triads arose from many suggestive relationships but chiefly because of the three joints of the fingers, because three legs were the fewest which could stabilize a stool, because three support points could keep up a tent; furthermore, primitive man, for a long time, could not count beyond three.

104:0.2 (1143.2) Aside from certain natural couplets, such as past and present, day and night, hot and cold, and male and female, man generally tends to think in triad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unrise, noon, and sunset; father, mother, and child. Three cheers are given the victor. The dead are buried on the third day, and the ghost is placated by three ablutions of water.

104:0.3 (1143.3) As a consequence of these natural associations in human experience, the triad made its appearance in religion, and this long before the Paradise Trinity of Deities, or even any of their representatives, had been revealed to mankind. Later on, the Persians, Hindus, Greeks, Egyptians, Babylonians, Romans, and Scandinavians all had triad gods, but these were

모두 자연적으로 기원됐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성적인 민족들 대부분 가운데서 한때 나타났었다. 때로는 진화로 생긴 삼원소 개념이, 계시된 **삼위일체** 개념과 혼합되기도 했으며; 이런 경우에 혼히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1. 유란시아의 삼위일체 개념

낙원 삼위일체를 깨닫도록 인도한 첫 **유란시아** 계시는, 약 50만 년 전에 **캘리가스차 왕자**의 참모진을 통해서 이뤄졌다. 최초의 이 **삼위일체** 개념은, 행성 반역이 터지고 나서 불안정하던 시기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계시는, 첫 번째 동산과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뤄졌다. 이 교훈은, 약 3만 5천 년 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셀족속의 삼위일체**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존속했기 때문이지만, 더 특별하게는 **인도**에서 **애그니**, 즉 **베다**의 머리 셋 달린 화신{火神}속에 오랫동안 잔존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계시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뤄졌고, **살렘**의 현자{賢者}가 자신의 흉갑{胸甲}에 붙인 세 개의 동심원이 이 교리를 상징했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팔레스틴**의 **베두원**에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에 관해서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제자 대부분은, **삼위일체**가 **노라티아덱의 지고자**{至高者}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했으며; 소수의 사람은, **삼위일체**를 **체계 주권자**와 **성좌 아버지**, 및 지방우주의 **창조주 신격**이라고 생각했으며; 훨씬 적은 무리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희미하게나마 파악했다.

살렘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삼위일체** 교훈이 **유라시아** 대부분과 북부 **아프리카** 전역에 서서히 전파됐다. 후기의 **안드족속** 시대와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삼원소와 삼자일체 사이를 구분하기는 대체로 힘든 일인데, 그때에는 두 개념이 어느 정도 혼합되고 유착돼 있었다.

힌두인 가운데서 삼자일체 개념은, **존재**, **지성**, 및 **기쁨**으로서 뿌리 내렸다. (**인도인**의 후대 생각은, **브라마**, **시바**, 및 **비쉬누**였다.) 초기에 있었던 **삼위일체** 묘사를 **셀족속** 제사장들이 **인도**로 전파했고, 한편 **삼위일체**에 관한 후대의 개념은 **살렘** 선교사들이 전했으며, **인도** 원주민 지식인들이 이런 교리들을 진화된 삼원소 개념과 합성시킴으로써 발전시켰다.

불교도 신앙은, 삼자일체 본성을 갖는 두 교

still not true trinities. Triad deities all had a natural origin and have appeared at one time or another among most of the intelligent peoples of Urantia. Sometimes the concept of an evolutionary triad has become mixed with that of a revealed Trinity; in these instances it is often impossible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1. URANTIAN TRINITY CONCEPTS

104:1.1 (1143.4) The first Urantian revelation leading to the comprehension of the Paradise Trinity was made by the staff of Prince Caligastia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is earliest Trinity concept was lost to the world in the unsettled times following the planetary rebellion.

104:1.2 (1143.5) The second presentation of the Trinity was made by Adam and Eve in the first and second gardens. These teachings had not been wholly obliterated even in the times of Machiventa Melchizedek about thirty-five thousand years later, for the Trinity concept of the Sethites persisted in both Mesopotamia and Egypt but more especially in India, where it was long perpetuated in Agni, the Vedic three-headed fire god.

104:1.3 (1143.6) The third presentation of the Trinity was made by Machiventa Melchizedek, and this doctrine was symbolized by the three concentric circles which the sage of Salem wore on his breast plate. But Machiventa found it very difficult to teach the Palestinian Bedouins about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Most of his disciples thought that the Trinity consisted of the three Most Highs of Norlatiadek; a few conceived of the Trinity as the System Sovereign, the Constellation Father, and the local universe Creator Deity; still fewer even remotely grasped the idea of the Paradise association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104:1.4 (1144.1)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alem missionaries the Melchizedek teachings of the Trinity gradually spread throughout much of Eurasia and northern Africa. It is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riads and the trinities in the later Andite and the post-Melchizedek ages, when both concepts to a certain extent intermingled and coalesced.

104:1.5 (1144.2) Among the Hindus the trinitarian concept took root as Being, Intelligence, and Joy. (A later Indian conception was Brahma, Siva, and Vishnu.) While the earlier Trinity portrayals were brought to India by the Sethite priests, the later ideas of the Trinity were imported by the Salem missionaries and were developed by the native intellects of India through a compounding of these doctrines with the evolutionary triad conceptions.

104:1.6 (1144.3) The Buddhist faith developed two doctrines of a trinitarian nature: The earlier was

리로 발달했다: 먼저 있던 것은, **스승, 법도, 및 형제관계**였으며; **가우타마 싯다르타**가 제시했다. 후대 관념은 **부다**의 추종자 가운데 북부 계열에서 발전했는데, **최상의 주**{主}, **거룩한 영**, 및 **육신화된 구원주**를 포함했다.

그리고 **힌두인**과 **불교도**의 이 관념은, 실제적인 삼자일체의 선결조건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일신교의 **하나님**이 삼중으로 나타난다는 관념이었다. 참된 삼자일체 개념은, 독립된 세 신을 함께 묶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히브리인은, **멜기세덱** 시대의 **켄족속** 전승으로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지만, 한 분 **하나님**, 즉 **야훼**에 대한 그들의 일신교 열정이, 그런 모든 교훈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예수**께서 출현했을 무렵에는, **엘로힘** 교리가 **유대** 신학에서 이미 실제로 근절된 상태였다. **히브리인**의 정신은, 삼자일체 개념을, **유일하신 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일신교 믿음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이슬람 신앙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개념을 파악하지 못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신론이 다신론{多神論}에 직면했을 때에는, 삼자일체론을 유지하기가 항상 어려웠다. 삼자일체 관념은, 교리의 융통성과 결부된 견고한 일신교 전통을 갖는 그런 종교에서 뿌리를 가장 잘 내린다. 위대한 일신론자였던 **히브리인**과 **마호메트교도**들은, 삼신{三神} 숭배, 다신론, 그리고 삼자일체론, 즉 신성과 인격의 삼중적 형태화 속에 존재하는 한 분 **신격**을 경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예수께서는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에 관한 진리를 사도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가 비유로 또는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히브리**의 유일신 사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야훼** 개념과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삼위일체** 개념에 반대되는 **히브리인**의 편견을 이어받았다.

그리스도교의 최초 **삼위일체**는 **안디옥**에서 선포됐으며, **하나님**, 그의 **말씀**, 및 그의 **지혜**로 구성됐다. **바울**은, **아버지**, **아들**, 및 **영**의 **낙원 삼위일체**를 알았지만, 그것에 관해 설교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새롭게 형성된 교회들에게 보낸 몇 번의 편지를 통해서만 언급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동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인 **예수**를, **신격**의 **제2 인격자**인 **낙원**의 **영원한 아들**과 혼동했다.

기원후 1세기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이해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만유의 아버지**, **네바돈의 창조주 아들**, 및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곧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자 **창조주 아들**의 창조 배우자--가 포함됐다.

Teacher, Law, and Brotherhood; that was the presentation made by Gautama Siddhartha. The later idea, developing among the northern branch of the followers of Buddha, embraced Supreme Lord, Holy Spirit, and Incarnate Savior.

104:1.7 (1144.4) And these ideas of the Hindus and Buddhists were real trinitarian postulates, that is, the idea of a threefold manifestation of a monotheistic God. A true trinity conception is not just a grouping together of three separate gods.

104:1.8 (1144.5) The Hebrews knew about the Trinity from the Kenite traditions of the days of Melchizedek, but their monotheistic zeal for the one God, Yahweh, so eclipsed all such teachings that by the time of Jesus' appearance the Elohim doctrine had been practically eradicated from Jewish theology. The Hebrew mind could not reconcile the trinitarian concept with the monotheistic belief in the One Lord, the God of Israel.

104:1.9 (1144.6) The followers of the Islamic faith likewise failed to grasp the idea of the Trinity. It is always difficult for an emerging monotheism to tolerate trinitarianism when confronted by polytheism. The trinity idea takes best hold of those religions which have a firm monotheistic tradition coupled with doctrinal elasticity. The great monotheists, the Hebrews and Mohammedans, fou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shipping three gods, polytheism, and trinitarianism, the worship of one Deity existing in a triune manifestation of divinity and personality.

104:1.10 (1144.7) Jesus taught his apostles the truth regarding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but they thought he spoke figuratively and symbolically. Having been nurtured in Hebraic monotheism, they found it difficult to entertain any belief that seemed to conflict with their dominating concept of Yahweh. And the early Christians inherited the Hebraic prejudice against the Trinity concept.

104:1.11 (1144.8) The first Trinity of Christianity was proclaimed at Antioch and consisted of God, his Word, and his Wisdom. Paul knew of the Paradise Trinity of Father, Son, and Spirit, but he seldom preached about it and made mention thereof in only a few of his letters to the newly forming churches. Even then, as did his fellow apostles, Paul confused Jesus, the Creator Son of the local universe, with the Second Person of Deity, the Eternal Son of Paradise.

104:1.12 (1144.9)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Trinity, which began to gain recognition near the close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was comprised of the Universal Father, the Creator Son of Nebadon, and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 Mother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and creative consort of the Creator Son.

예수 시대 이후로, 본 계시 발표가 제시될 때까지, **낙원 삼위일체**의 실제 정체성은 (특별히 그 계시를 받은 소수의 개인은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개념이 사실상 잘못됐더라도, 영적 관계에 관해서는 실제로 옳았다. 오직 그 철학적 함축성과 우주론적 결론만이 이 개념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시공 우주에 신경을 쓰는 많은 사람은, **신격의 둘째 인격자**, 즉 무한한 **삼위일체**의 둘째 구성원이 한때 **유란시아**에 거주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으며;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옳은 반면,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다. **미가엘 창조주**들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을 완전하게 간직하지만, 절대 인격체는 아니다.

2.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수의 신격

일신교는 다신교의 모순에 대항하는 철학적 항변으로 발생했다. 처음에는 초자연적 활동을 세분화하면서 만신전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신 위에 한 신을 높이는 단일신교로, 그리고 마침내 최종 가치를 갖는 **한 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시킴을 통해서 일신교가 발달했다.

삼위일체론은, 우주 취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비의인화{非擬人化}된 고독한 **신격**이 홀로 있음을 상상하기 불가능한 것에 대한, 체험적 항변에서 생겨난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철학은 순수한 일신교 **신격** 개념에서 인격적 특성을 뽑아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하여 아무 관계없는 이 **하나님** 관념을, 이처럼 범신론적 **절대자** 지위로 낮춘다. 동격의 다른 인격적 존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이해하기는 항상 어려웠다. **신격** 속에 있는 인격은, 인격있는 다른 대등한 **신격**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신격**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정신은, **삼위일체** 개념의 인식을 통해서, 시·공간 창조계에서 사랑과 법칙의 상호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영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영적 신앙이, 물질 우주의 규정된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곧 발견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낙원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확고한 것에 상관없이, 팽창하는 시공우주 범위는, 또한 **낙원 신격**이 보편적 법칙임을 인식하라고, 즉 **삼위일체**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사람에게 요구하는데, 그 주권은 **낙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하고, 영원한 세 인격자의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주 딸**들이 만든 진화하는 지방우주들조차 무색하게 만들며, 이러한 세 인격자의 신격 합일은, **낙원 삼위일체**의 사실이요 실제이고 영원한 불가분성{不可分性}이다.

104:1.13 (1145.1) Not since the times of Jesus has the factual identity of the Paradise Trinity been known on Urantia (except by a few individuals to whom it was especially revealed) until its presentation in these revelatory disclosures. But though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Trinity erred in fact, it was practically true with respect to spiritual relationships. Only in its philosophic implications and cosmological consequences did this concept suffer embarrassment: It has been difficult for many who are cosmic minded to believe that the Second Person of Deity, the second member of an infinite Trinity, once dwelt on Urantia; and while in spirit this is true, in actuality it is not a fact. The Michael Creators fully embody the divinity of the Eternal Son, but they are not the absolute personality.

2. TRINITY UNITY AND DEITY PLURALITY

104:2.1 (1145.2) Monotheism arose as a philosophic protest against the inconsistency of polytheism. It developed first through pantheon organizations with the departmentalization of supernatural activities, then through the henotheistic exaltation of one god above the many, and finally through the exclusion of all but the One God of final value.

104:2.2 (1145.3) Trinitarianism grows out of the experiential protest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onceiving the oneness of a deanthropomorphized solitary Deity of unrelated universe significance. Given a sufficient time, philosophy tends to abstract the personal qualities from the Deity concept of pure monotheism, thus reducing this idea of an unrelated God to the status of a pantheistic Absolute.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ersonal nature of a God who has no personal relationships in equality with other and co-ordinate personal beings. Personality in Deity demands that such Deity exist in relation to other and equal personal Deity.

104:2.3 (1145.4)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Trinity concept the mind of man can hope to grasp something of the interrelationship of love and law in the time-space creations. Through spiritual faith man gains insight into the love of God but soon discovers that this spiritual faith has no influence on the ordained laws of the material universe. Irrespective of the firmness of man's belief in God as his Paradise Father, expanding cosmic horizons demand that he also give recognition to the reality of Paradise Deity as universal law, that he recognize the Trinity sovereignty extending outward from Paradise and overshadowing even the evolving local universes of the Creator Sons and Creative Daughters of the three eternal persons whose deity union is the fact and reality and eternal indivisibility of the Paradise Trinity.

그리고 바로 이 **낙원 삼위일체**는 실제적 실체--곧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림에도 참되고 절대적인 실체--이며;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림에도 공존하는 인격체들--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체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세 **낙원 신격**이 결합하여 결말에 이르는, 더 이상 부가{附加}될 수 없는 **신격**이다. **삼위일체**의 특성, 특질, 및 기능은 세 **낙원 신격**의 속성들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며; **삼위일체** 기능은,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속성을 분석함으로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무엇이다.

예를 들자면: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추종자들에게 응보가 결코 **개인의** 작용이 아니며; 반드시 **집단의** 기능이라고 훈계했다. 또한 **하나님**들께서도 인격체로서는 응보를 집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능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즉 **낙원 삼위일체**로서 수행하신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이 **삼위일체**로 연합한다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삼중적 관계에 대한 추가적 제시를 위해서 인간 정신을 준비시킨다. 신학적 전제는 **낙원 삼위일체** 개념으로 완전히 만족될 수 있겠지만, 철학적 및 포괄적 전제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삼중적 연합체들, 즉 삼중체{三重體}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데, 그 삼중체들 안에서 **무한자**는, 우주에서 나타나는--힘, 에너지, 능력, 원인, 반작용, 잠재력, 실체성, 인력{引力}, 장력{張力}, 원형{原型}, 원칙, 및 통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여러 관계에서-- **아버지**와--무관한 다양한 자격으로 활동한다.

104:2.4 (1145.5) And this selfsame Paradise Trinity is a real entity — not a personality but nonetheless a true and absolute reality; not a personality but nonetheless compatible with coexistent personalities — the personalitie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Trinity is a supersummative Deity reality eventuating out of the conjoining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The qualitie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Trinity are not the simp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Trinity functions are something unique, original, and not wholly predictable from an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Father, Son, and Spirit.

104:2.5 (1146.1) For example: The Master, when on earth, admonished his followers that justice is never a *personal* act; it is always a *group* function. Neither do the Gods, as persons, administer justice. But they perform this very function as a collective whole, as the Paradise Trinity.

104:2.6 (1146.2) The conceptual grasp of the Trinity association of Father, Son, and Spirit prepares the human mind for the further presentation of certain other threefold relationships. Theological reason may be fully satisfied by the concept of the Paradise Trinity, but philosophical and cosmological reason demand the recognition of the other triune association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ose triunities in which the Infinite functions in various non-Father capacities of universal manifestation — the relationships of the God of force, energy, power, causation, reaction, potentiality, actuality, gravity, tension, pattern, principle, and unity.

3. 삼위일체와 삼중체

인류는 때때로 **신격**의 세 인격자로 이뤄진 **삼위일체**를 파악했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일곱 **절대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들이 있음을 인간 지능이 감지해야 한다. 그러나 **낙원 삼위일체**에 관해서 참된 모든 것이, **삼중체**에 관해서도 반드시 참이지는 않은데, 삼중체는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적 견지에서 본다면 삼중체는 **삼위일체**와 유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필사적 사람은, **유란시아**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개념이 확장되는 위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며, 그의 시공우주 철학은, 인간 사고{思考}라는 지적 경계장이 확장되는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공우주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필사적 사람은, 물질 과학, 지적 철학, 및 영적 통찰력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된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도 사람은 시공우주가 통일돼 있다는 이 모든 믿음과 함께, 모든 실존의 다양성을 감지한다. **신격**의 불변성에 관한 모든 개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정하게 변화

3. TRINITIES AND TRIUNITIES

104:3.1 (1146.3) While mankind has sometimes grasped at an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consistency demands that the human intellect perceive that there are certain relationships between all seven Absolutes. But all that which is true of the Paradise Trinity is not necessarily true of a *triunity*, for a triunity is something other than a trinity. In certain functional aspects a triunity may be analogous to a trinity, but it is never homologous in nature with a trinity.

104:3.2 (1146.4) Mortal man is passing through a great age of expanding horizons and enlarging concepts on Urantia, and his cosmic philosophy must accelerate in evolution to keep pace with the expansion of the intellectual arena of human thought. As the cosmic consciousness of mortal man expands, he perceives the interrelatedness of all that he finds in his material science, intellectual philosophy, and spiritual insight. Still, with all this belief in the unity of the cosmos, man perceives the diversity of all existence. In spite of all

하고 체험적으로 성장하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지한다. 영적 가치가 생존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상관없이, 사람은, 힘, 에너지, 및 동력을 다루는 수학{數學} 및 선재{先在}_수학으로 늘 판단해야 한다.

무한성의 영원히 충만한 성질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시간_성장과, 또한 거기서 체험하는 거주자들의 불완전성과 어떤 방법으로 절충돼야 한다. 전체 무궁함에 대한 생각은, 최종 가치가 있고 영성화하는 중요성이 있는 이 개념을, 필사자의 지능과 모론시아 혼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분되고 제한돼야 한다.

이성은 시공우주 실체의 일신교적 통일을 요구하지만, 유한한 체험은, 복수{複數}의 **절대자**에 대한 가정, 그리고 시공우주 관계에서 그들이 조화된다는 가정을 요구한다. 동급의 실존들이 없다면 다양한 절대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차이, 변수, 변경자, 감쇠자{減衰者}, 제한자, 또는 축소자가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본 문서들에서는 총 실체가(곧 무한이) 일곱 **절대자**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돼 왔다:

1. 만유의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4. 낙원 섬.
5. 신격 절대자.
6. 우주 절대자.
7. 무조건 절대자.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이 시고, 또한 **낙원 섬**에 계 **원형**{原型}이시다. 그는 **아들** 안에서 무조건적 인격이시지만, **신격 절대자** 안에서는 잠재화{潛在化}된 인격이시다. **아버지**는, **낙원_하보나**에 계시된 에너지이며, 또한 동시에 **무조건 절대자** 안에 감춰진 시간 에너지이다. **무한자**는, **공동 행위자**의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늘 드러나며, 한편 **우주 절대자**의, 보정하지만 감춰진 활동에서 영원토록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섯 동격 **절대자**와 관련되며, 그리하여 영원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동안 내내, 일곱 존재 모두 무한성 궤도를 둘러싼다.

절대 관계의 삼중체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인격체는, 절대 수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준에서도, 다른 인격체와 연합하기를 추구한다. **낙원**의 세 인격체의 연합은, 첫 삼중체, 즉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체 결합을 영원하게 만든다. 왜

concepts concerning the immutability of Deity, man perceives that he lives in a universe of constant change and experiential growth. Regardless of the realization of the survival of spiritual values, man has ever to reckon with the mathematics and premathematics of force, energy, and power.

104:3.3 (1146.5) In some manner the eternal repleteness of infinity must be reconciled with the time-growth of the evolving universes and with the incompleteness of the experiential inhabitants thereof. In some way the conception of total infinitude must be so segmented and qualified that the mortal intellect and the morontia soul can grasp this concept of final value and spiritualizing significance.

104:3.4 (1146.6) While reason demands a monotheistic unity of cosmic reality, finite experience requires the postulate of plural Absolutes and of their co-ordination in cosmic relationships. Without co-ordinate existences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appearance of diversity of absolute relationships, no chance for the operation of differentials, variables, modifiers, attenuators, qualifiers, or diminishers.

104:3.5 (1146.7) In these papers total reality (infinity) has been presented as it exists in the seven Absolutes:

104:3.6 (1146.8) 1. The Universal Father.

104:3.7 (1146.9) 2. The Eternal Son.

104:3.8 (1146.10) 3. The Infinite Spirit.

104:3.9 (1147.1) 4. The Isle of Paradise.

104:3.10 (1147.2) 5. The Deity Absolute.

104:3.11 (1147.3) 6. The Universal Absolute.

104:3.12 (1147.4) 7. The Unqualified Absolute.

104:3.13 (1147.5)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o is Father to the Eternal Son, is also Pattern to the Paradise Isle. He is personality unqualified in the Son but personality potentialized in the Deity Absolute. The Father is energy revealed in Paradise-Havona and at the same time energy concealed in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Infinite is ever disclosed in the ceaseless acts of the Conjoint Actor while he is eternally functioning in the compensating but enshrouded activities of the Universal Absolute. Thus is the Father related to the six co-ordinate Absolutes, and thus do all seven encompass the circle of infinity throughout the endless cycles of eternity.

104:3.14 (1147.6) It would seem that triunity of absolute relationships is inevitable. Personality seeks other personality association on absolute as well as on all other levels. And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personalities eternalizes the first triunity,

냐하면 이 세 인격자가, 인격자들로서, 결합된 기능을 위해 합칠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기능적으로 통일되는 삼중체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삼위일체**--곧 유기체적 실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삼중체, 즉 삼중적으로 기능이 일치된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낙원 삼위일체는 삼중체가 아니며; 기능적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뉘어 있지 않고 또 나눌 수도 없는 **신격**이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인격자로서) **낙원 삼위일체**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는 그들의 나뉘지 않은 **신격**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첫 삼중체와 그런 인격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는 첫 삼중체가 세 인격체로서 그들의 기능적 합동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삼위일체**로서만--곧 나뉘지 않은 **신격**으로서만-- 그들의 인격자 집합체인 삼중체에 대해서 대외 관계를 집단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낙원 삼위일체**는 절대 관계들 가운데서 독특성을 유지하는데, 여러 실존적 삼중체가 있지만 실존적 **삼위일체**는 하나밖에 없다. 삼중체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유기체라기보다 기능적인 것이다. 그 구성원들은 협조자라기보다는 동업자다. 삼중체들의 구성 요소들은 실체이겠지만, 삼중체 자체는 하나의 연합체다.

아무튼, **삼위일체**와 삼중체 사이에는 한 가지 유사점이 있다: 이 둘은 결국 기능들이 되는데, 구성 요원의 속성들 가운데 식별할 수 있는 전체와는 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이들을 이처럼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명백한 관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기능이 구조와 갖는 관계로서만 관련돼 있다. 그러나 삼중체 연합의 기능은 **삼위일체**의 구조 또는 실체의 기능이 아니다.

그럼에도 삼중체들은 실제적이며; 매우 실제적이다. 삼중체를 속에서 전체 실체가 기능을 발휘하며, **만유의 아버지**는 이를 통해서 무한의 총괄 기능에 대해서 직접 친히 통제를 행사하신다.

4. 일곱 삼중체

일곱 삼중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만유의 아버지**가 각 삼중체의 근본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제1 만유의 아버지, 근원, 절대 중심, 최초의 원인, 우주적 통치자, 무제한 활력자, 원래의 통일, 무조건 지탱자, 신격의 제1 인격자, 최초의 시공우주 원형**{原型}, 및 **무한성의 본질**이 되실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절대자**들의 인격적 근원이시며; **절대자**들의 절대적 존재시다.

일곱 삼중체의 본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ersonality union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For when these three persons, as *persons*, conjoin for united function, they thereby constitute a triunity of functional unity, not a trinity — an organic entity — but nonetheless a triunity, a threefold functional aggregate unanimity.

104:3.15 (1147.7) The Paradise Trinity is not a triunity; it is not a functional unanimity; rather it is undivided and indivisible De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as persons) can sustain a relationship to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Trinity is their undivided De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sustain no such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first triunity, for that is their functional union as three persons. Only as the Trinity — as undivided Deity — do they collectively sustain an external relationship to the triunity of their personal aggregation.

104:3.16 (1147.8) Thus does the Paradise Trinity stand unique among absolute relationships; there are several existential triunities but only one existential Trinity. A triunity is *not* an entity. It is functional rather than organic. Its members are partners rather than corporative. The components of the triunities may be entities, but a triunity itself is an association.

104:3.17 (1147.9) There is, however, one point of comparison between trinity and triunity: Both eventuate in functions that are something other than the discernib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component members. But while they are thus comparable from a functional standpoint, they otherwise exhibit no categorical relationship. They are roughly related as the relation of function to structure. But the function of the triunity association is not the function of the trinity structure or entity.

104:3.18 (1147.10) The triunities are nonetheless real; they are very real. In them is total reality functionalized, and through them does the Universal Father exercise immediate and personal control over the master functions of infinity.

4. THE SEVEN TRIUNITIES

104:4.1 (1147.11) In attempting the description of seven triunities, attention is directed to the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rimal member of each. He is, was, and ever will be: the First Universal Father-Source, Absolute Center, Primal Cause, Universal Controller, Limitless Energizer, Original Unity, Unqualified Upholder, First Person of Deity, Primal Cosmic Pattern, and Essence of Infinity.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ersonal cause of the Absolutes; he is the absolute of Absolutes.

104:4.2 (1148.1)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even triunities may be suggested as:

제1 삼중체--인격적이고_목적이_있는 **삼중체**. 이것은 세 **신격** 인격체들의 집단화다.

1. 만유의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이것은, 사랑, 자비(慈悲), 및 봉사의 삼중 합동이다--곧 **낙원**의 영원한 세 인격체의 의도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이다. 이것은, 신성하게 우에 있는, 피조물을_사랑하는, 아버지답게_행동하는, 그리고 상승을_증진시키는 연합체다. 이런 제1 삼중체의 신성한 인격체들은, 인격을_수여하고, 영을_증여하며, 정신을_부여하는 **하나님**들이시다.

이것이 무한한 의지를 지닌 삼중체이며; 영원한 현재에 두루, 그리고 시간의 과거_현재_미래 흐름 전체 속에서 활동한다. 이 연합은 무한한 의지를 낳고, 인격있는 **신격**이, 진화하는 시공우주의 피조물에게 스스로를_게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제2 삼중체--동력_원형 삼중체. 미세한 입자나 타오르는 별 또는 소용돌이치는 성운(星雲) 그리고 심지어 중앙우주 또는 연방우주들, 즉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물질 조직체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물리적 원형--곧 시공우주 배열--은 이 삼중체의 기능에서 도출된다. 이 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아버지_아들

2. 낙원 섬.

3. 공동 행위자.

제3 근원 및 중심의 시공우주 대행자들이 에너지를 조직하며; 절대적 물질화인 **낙원**의 원형을 따라서 에너지가 형성되지만; 끊임없는 이 모든 조종 뒤에 **아버지_아들**이 현존하는데, 두 분의 합동은, **무한한 영**, 즉 **공동 행위자**의 탄생과 동시에 **낙원** 원형을 처음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보나**가 출현하게 만들었다.

종교 체험을 겪으면서, 피조물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접촉을 이루지만, 그런 영적 통찰력은, 그 원형, 즉 **낙원** 자체가 우주의 실상임을 충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낙원** 인격체들은, 신성한 사랑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모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찬미를 드리게 하며, 영으로_태어난 그런 모든 인격체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완결성취자 아들들이 끊임없이 봉사하는 숭고한 환희(歡喜)에 동참하게 한다. 둘째 삼중체는, 이런 처리사항이 나타나는 공간 무대의 건축가이며; 시공우주에 배치되는 원형들을 결정한다.

사랑이 제1 삼중체의 신성(神性)의 특징일지

104:4.3 (1148.2) *The First Triunity — the personal-purposeful triunity. This is the grouping of the three Deity personalities:*

104:4.4 (1148.3) 1. The Universal Father.

104:4.5 (1148.4) 2. The Eternal Son.

104:4.6 (1148.5) 3. The Infinite Spirit.

104:4.7 (1148.6) This is the threefold union of love, mercy, and ministry — the purposive and personal association of the three eternal Paradise personalities. This is the divinely fraternal, creature-loving, fatherly-acting, and ascension-promoting association. The divine personalities of this first triunity are personality-bequeathing, spirit-bestowing, and mind-endowing Gods.

104:4.8 (1148.7) This is the triunity of infinite volition; it acts throughout the eternal present and in all of the past-present-future flow of time. This association yields volitional infinity and provides the mechanisms whereby personal Deity becomes self-revelatory to the creatures of the evolving cosmos.

104:4.9 (1148.8) *The Second Triunity — the power-pattern triunity. Whether it be a tiny ultimatron, a blazing star, or a whirling nebula, even the central or superuniverses, from the smallest to the largest material organizations, always is the physical pattern — the cosmic configuration — derived from the function of this triunity. This association consists of:*

104:4.10 (1148.9) 1. The Father-Son.

104:4.11 (1148.10) 2. The Paradise Isle.

104:4.12 (1148.11) 3. The Conjoint Actor.

104:4.13 (1148.12) Energy is organized by the cosmic agent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nergy is fashioned after the pattern of Paradise, the absolute materialization; but behind all of this ceaseless manipulation is the presence of the Father-Son, whose union first activated the Paradise pattern in the appearance of Havona concomitant with the birth of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Actor.

104:4.14 (1148.13) In religious experience, creatures make contact with the God who is love, but such spiritual insight must never eclipse the intelligent recognition of the universe fact of the pattern which is Paradise. The Paradise personalities enlist the freewill adoration of all creatures by the compelling power of divine love and lead all such spirit-born personalities into the supernal delights of the unending service of the finaliter sons of God. The second triunity is the architect of the space stage whereon these transactions unfold; it determines the patterns of cosmic configuration.

104:4.15 (1148.14) Love may characterize the divinity of

모르지만, 원형은 제2 삼중체가 성단{星團}으로 형태화한 것이다. 제1 삼중체와 진화하는 인격체들의 관계는, 제2 삼중체와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계와 같다. 원형과 인격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행동 가운데 두 가지 가장 중대한 형태화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동력_원형과 사랑이 넘치는 인격자가 동일한 보편적 실체인 것이 여전히 사실이며; **낙원 섬과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 힘의 헤아릴 수 없는 본성이 나란히 그러나 정반대로 계시된 존재들이다.

제3 삼중체 -- 영을_진화시키는 삼중체. 영적 진화의 전체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연합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1. 만유의 아버지.

2. 아들_영.

3. 신격 절대자.

영 잠재력으로부터 **낙원** 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은, **아버지**의 순수한 영 본질, **아들_영**의 활동적 영 가치, 및 **신격 절대자**의 무제한적 영 잠재성, 이 삼중적 연합에서 실체가 표현된다. 영의 실존적 가치는 이 삼중체 속에서 원초적으로 창시되고, 완벽하게 명시되고, 마지막 운명을 갖는다.

아버지는 영 이전에 존재하시며; **아들_영**은 활동적인 창조 영으로 작용하며; **신격 절대자**는 만유를_포함하는 영으로서, 심지어 영을 넘어서도 존재한다.

제4 삼중체 -- 무한 에너지의 삼중체. 이 삼중체 안에서, 공간 잠재력으로부터 단일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실체의 시작과 끝을 영존시킨다. 이 모임은 아래 존재들을 포함한다:

1. 아버지_영.

2. 낙원 섬.

3. 무조건 절대자.

낙원은 시공우주에서 힘_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중심이다--**제1 근원 및 중심**의 우주 위치, **무조건 절대자**의 시공우주 초점,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 삼중체 안에 실존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시공우주의_무한한 에너지 잠재력인데, 그 가운데 광우주와 총괄우주는 겨우 부분적으로 형태화된 것이다.

제4 삼중체는, 근본 단위의 시공우주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변질을 일으키는 시공우주를 통제하고 안정시키는 준절대 수용력이 체험적 **신격**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에 정비례로, 이 에너지를 **무조건 절대자**의 지배로부터 풀어준다.

the first triunity, but pattern is the galactic manifestation of the second triunity. What the first triunity is to evolving personalities, the second triunity is to the evolving universes. Pattern and personality are two of the great manifestations of the act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o comprehend, it is nonetheless true that the power-pattern and the loving person are one and the same universal reality; the Paradise Isle and the Eternal Son are co-ordinate but antipodal revelations of the unfathomabl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Force.

104:4.16 (1149.1) *The Third Triunity — the spirit-evolutional triunity.* The entirety of spiritual manifestation has its beginning and end in this association, consisting of:

104:4.17 (1149.2) 1. The Universal Father.

104:4.18 (1149.3) 2. The Son-Spirit.

104:4.19 (1149.4) 3. The Deity Absolute.

104:4.20 (1149.5) From spirit potency to Paradise spirit, all spirit finds reality expression in this triune association of the pure spirit essence of the Father, the active spirit values of the Son-Spirit, and the unlimited spirit potentials of the Deity Absolute. The existential values of spirit have their primordial genesis, complete manifestation, and final destiny in this triunity.

104:4.21 (1149.6) The Father exists before spirit; the Son-Spirit functions as active creative spirit; the Deity Absolute exists as all-encompassing spirit, even beyond spirit.

104:4.22 (1149.7) *The Fourth Triunity — the triunity of energy infinity.* Within this triunity there eternalizes the beginnings and the endings of all energy reality, from space potency to monota. This grouping embraces the following:

104:4.23 (1149.8) 1. The Father-Spirit.

104:4.24 (1149.9) 2. The Paradise Isle.

104:4.25 (1149.10) 3.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26 (1149.11) Paradise is the center of the force-energy activation of the cosmos — the universe posi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cosmic focal poin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source of all energy. Existentially present within this triunity is the energy potential of the cosmos-infinite, of which the grand universe and the master universe are only partial manifestations.

104:4.27 (1149.12) The fourth triunity absolutely controls the fundamental units of cosmic energy and releases them from th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 direct proportion to the appearance in the experiential Deities of

이 삼중체는 힘과 에너지이다. **무조건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은 **낙원 섬**의 절대물질 주변에 집중하는데, **무조건자**의 그 외의 고정된 정지상태의 상상할 수 없는 진동이 거기서 발산된다. 그리고 **무한한 활력제공자**,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형과 불가사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무한한 시공우주의, 물질로 된 **낙원** 심장부의 끝없는 맥박이 뛴다.

제5 삼중체-무한히 반응하는 삼중체. 이 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만유의 아버지.
2. 우주 절대자.
3. 무조건 절대자.

이 모임은, 신격이 아닌 실체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무한한 기능의 실현을 영원하게 만든다. 이 삼중체는, 다른 삼중체들의 자발적인, 원인이 되는, 긴장되는, 그리고 원형이 되는 행위 및 현존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제6 삼중체-시공우주에서_연합된 **신격**의 삼중체. 이 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만유의 아버지.
2. 신격 절대자.
3. 우주 절대자.

이것은 시공우주에_계신 **신격**의 연합, 즉 **신격**의 초월성과 함께 **신격**의 내재성이다. 이것은, 신격화된 실체의 영역밖에 있는 그 실체들을 향해서, 신성(神性)이 무한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미치는 범위다.

제7 삼중체-무한히 통일되는 삼중체. 이것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무한한 통일, 즉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이 나란히 통합되는 것이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만유의 아버지.
2. 공동 행위자.
3. 우주 절대자.

공동 행위자는, 유한한 것으로부터 초월적인 것을 거쳐 절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준의 모습으로 현시(顯示)된 모든 실체의 다른 기능적 모습을 보편적으로 통합한다. **우주 절대자**는 적극적_의지적이고, 무언가 일으키는 **신격** 실체의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무조건 절대자**의 불가해한 영역에 있는 실체, 즉 고정되고 반응하는 비

subabsolute capacity to control and stabilize the metamorphosing cosmos.

104:4.28 (1149.13) This triunity is force and energy.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re centered around the absolutum of the Isle of Paradise, whence emanate the unimaginable agitations of the otherwise static quiescence of the Unqualified. And the endless throbbing of the material Paradise heart of the infinite cosmos beats in harmony with the unfathomable pattern and the unsearchable plan of the Infinite Energiz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4:4.29 (1149.14) *The Fifth Triunity — the triunity of reactive infinity.* This association consists of:

104:4.30 (1149.15) 1. The Universal Father.

104:4.31 (1149.16) 2. The Universal Absolute.

104:4.32 (1149.17) 3.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33 (1149.18) This grouping yields the eternalization of the functional infinity realization of all that is actualizable within the domains of nondeity reality. This triunity manifests unlimited reactive capacity to the volitional, causative, tensional, and patternal actions and presences of the other triunities.

104:4.34 (1150.1) *The Sixth Triunity — the triunity of cosmic-associated Deity.* This grouping consists of:

104:4.35 (1150.2) 1. The Universal Father.

104:4.36 (1150.3) 2. The Deity Absolute.

104:4.37 (1150.4) 3. The Universal Absolute.

104:4.38 (1150.5) This is the association of Deity-in-the-cosmos, the immanence of Deity in conjunction with the transcendence of Deity. This is the last outreach of divinity on the levels of infinity toward those realities which lie outside the domain of deified reality.

104:4.39 (1150.6) *The Seventh Triunity — the triunity of infinite unity.* This is the unity of infinity functionally manifest in time and eternity, the co-ordinate unification of actuals and potentials. This group consists of:

104:4.40 (1150.7) 1. The Universal Father.

104:4.41 (1150.8) 2. The Conjoint Actor.

104:4.42 (1150.9) 3. The Universal Absolute.

104:4.43 (1150.10) The Conjoint Actor universally integrates the varying functional aspects of all actualized reality on all levels of manifestation, from finites through transcendentals and on to absolutes. The Universal Absolute perfectly compensates the differentials inherent in the varying aspects of all incomplete reality, from the limitless potentialities of active-volitional and

{非}_신격 실체의 무한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완전한 실체의 변화하는 양상 속에 타고 난, 여러 차이점을 완전하게 보정{補正}한다.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는, 이 삼중체 속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신격**에게, 그리고 비{非}_신격 현존들에게 똑같이 민감하고, **제1 근원 및 중심**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 관계에서 모든 의미와 목적으로 볼 때, **자존자**{自存者}의 개념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접근은 삼중체들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삼중체들의 궁극적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 일곱 가지를 완전하게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시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15가지 삼중 연합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여덟 가지는 본 문서들에 계시되지 않는다. 계시되지 않는 이 연합체들은 지존성{至尊性}에 대한 체험 수준을 넘어서는 실체, 사실성, 및 잠재성과 관련된다.

삼중체들은, 무한을 기능적으로 안정시키는 평형 바퀴요, **일곱 무한 절대자**의 독특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무한이 일곱 **절대자**로 다양화됐음에도, **아버지_자존자**로 하여금 기능적 무한의 통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삼중체들이 실존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삼중체를 통합하는 구성원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무조건적 시작, 영원한 실존, 및 무한한 운명을 갖는다--“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이 연합체들이 **아버지_자존자**{自存者}의 무한성을 증대시킬 수 없을지라도, 이런 연합체들은 그의 실체가 준{準}무한대와 준절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듯하다. 일곱 삼중체는, 융통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깊이를 영구화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신격화시키고, 새로운 잠재성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를 계시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영원한 시공우주에서, 변화 많은 이 모든 징후는, 원래 무한한 **자존자**가 가정적{假定的}으로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존재한다.

5. 삼극체

구성에서 **아버지**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어떤 삼중적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삼중체가 아니며, **아버지** 삼중체들로부터 언제나 구분된다. 이들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부{副}삼중체, 동격 삼중체, 그리고 **삼극체**{三極體}라고 불린다. 이들은 삼중체들이 실존하는 결과로 생긴다. 이 연합체들 가운데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실제성의 삼극체. 이 삼극체는 다음의 세 가지 절대적 실상의 상호 관계에 있다:

causative Deity reality to the boundless possibilities of static, reactive, nondeity reality in the incomprehensibl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44 (1150.11) As they function in this triunity,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iversal Absolute are alike responsive to Deity and to nondeity presences, as also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o in this relationship i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concep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the I AM.

104:4.45 (1150.12) These approximations are sufficient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triunities. Not knowing the ultimate level of the triunities, you cannot fully comprehend the first seven. While we do not deem it wise to attempt any further elaboration, we may state that there are fifteen triune association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eight of which are unrevealed in these papers. These unrevealed associations are concerned with realities, actualities, and potentialities which are beyond the experiential level of supremacy.

104:4.46 (1150.13) The triunities are the functional balance wheel of infinity, the unific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Seven Infinity Absolutes. It is the existential presence of the triunities that enables the Father-I AM to experience functional infinity unity despite the diversification of infinity into seven Absolute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unifying member of all triunities; in him all things have their unqualified beginnings, eternal existences, and infinite destinies — “in him all things consist.”

104:4.47 (1150.14) Although these associations cannot augment the infinity of the Father-I AM, they do appear to make possible the subinfinite and subabsolute manifestations of his reality. The seven triunities multiply versatility, eternalize new depths, deitize new values, disclose new potentialities, reveal new meanings; and all these diversified manifestations in time and space and in the eternal cosmos are existent in the hypothetical stasis of the original infinity of the I AM.

5. TRIODITIES

104:5.1 (1151.1) There are certain other triune relationships which are non-Father in constitution, but they are not real triunities, and they are always distinguished from the Father triunities. They are called variously, associate triunities, co-ordinate triunities, and *triodities*. They are consequential to the existence of the triunities. Two of these association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04:5.2 (1151.2) *The Triodity of Actuality.* This triodity consists i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ree absolute actuals:

1. 영원한 아들.

104:5.3 (1151.3) 1. The Eternal Son.

2. 낙원 섬.

104:5.4 (1151.4) 2. The Paradise Isle.

3. 공동 행위자.

104:5.5 (1151.5) 3. The Conjoint Actor.

영원한 아들은, 영{靈} 실체의 절대자, 즉 절대 인격체다. **낙원 섬**은, 시공우주 실체의 절대자, 즉 절대 원형이다. **공동 행위자**는 정신 실체의 절대자, 즉 절대 영 실체의 협조자이며, 인격과 권능이 실존적으로 합성된 **신격**이다. 이 삼중적 연합은, 실현된 --영 실체, 시공우주 실체, 또는 정신적-- 실체의 전체 총합에 대한 조화를 생겨나게 한다. 그것은 실제성에서 무조건적이다.

104:5.6 (1151.6)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of spirit reality, the absolute personality. The Paradise Isle is the absolute of cosmic reality, the absolute pattern. The Conjoint Actor is the absolute of mind reality, the co-ordinate of absolute spirit reality, and the existential Deity synthesis of personality and power. This triune association eventuates the co-ordination of the sum total of actualized reality — spirit, cosmic, or mindal. It is unqualified in actuality.

잠재성의 삼극체. 이 삼극체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의 연합에 있다.

104:5.7 (1151.7) *The Triodity of Potentiality.* This triodity consists in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1. 신격 절대자.

104:5.8 (1151.8) 1. The Deity Absolute.

2. 우주 절대자.

104:5.9 (1151.9) 2. The Universal Absolute.

3. 무조건 절대자.

104:5.10 (1151.10) 3. The Unqualified Absolute.

그래서 모든 숨어있는 --영 에너지 실체, 정신적 에너지 실체, 또는 시공우주의-- 에너지 실체의 무한대 저장소들이 상호 연합돼 있다. 이 연합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 실체를 통합하게 한다. 그것은 가능성 면에서 볼 때 무한대다.

104:5.11 (1151.11) Thus are interassociated the infinity reservoirs of all latent energy reality — spirit, mindal, or cosmic. This association yields the integration of all latent energy reality. It is infinite in potential.

삼중체들이 본래적으로는 무한대의 기능적 통합과 관련되듯이, 삼극체들은 체험적 **신격**들의 시공우주 출현에 포함된다. 삼중체들은, 체험적 --곧 **지존**, **궁극**, 및 **절대**-- **신격**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삼극체들은 직접 관계된다. 그들은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권능과_인격을 합성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피조물에게, **지존하신 분**은 **자존자**의 통일성에 대한 계시{啓示}다.

104:5.12 (1151.12) As the triunitie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functional unification of infinity, so are triodities involved in the cosmic appearance of experiential Deities. The triunities are indirectly concerned, but the triodities are directly concerned, in the experiential Deities —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They appear in the emerging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And to the time creatures of space the Supreme Being is a revelation of the unity of the I AM.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104:5.13 (1151.13)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5편. 신격과 실체

⇨ 104

유란시아 책

10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5편
신격과 실체

섹션

소개

1. 자존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
2. 삼중 및 칠중으로서의 자존자
3. 일곱 무한 절대자
4. 단일체, 이중체, 삼중체
5. 유한한 실체의 확산
6. 유한한 실체의 반응
7. 초월자의 결말

PAPER 105

DEITY AND REALITY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2. The I AM as Triune and as Sevenfold
3.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4. Unity, Duality, and Triunity
5.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6. Repercussions of Finite Reality
7.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s

소개

높은 계층의 우주 지성체들도, 무한성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납득할 수 있으며, 실체의 완결성을 오직 상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실재한다고 부르는 모든 것의 기원 및 운명의 영원함과 신비를 통찰하려고 할 때, 영원성_무한성을 거의 무한한 타원(橢圓)이라고 상상함으로써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지 모르는데, 이 타원은 하나의 절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고, 끝없이 다양화되는 우주 궤도에 두루 작용하면서, 어떤 절대적이고 무한한 운명의 잠재성을 늘 추구한다.

필사자 지능이 실체 전부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애쓸 때, 그런 유한한 정신은 무한한_실체와 대면하게 되며; 실체의 총계는 무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수용력에서 무한하지 않은 어떤 정신도, 이를 결코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영원성을 가진 실존에 대해서 적당한 개념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런 납득 없이는 실체 전부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조차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소개를 시도할 수 있는데, 필사 정신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해석하고_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INTRODUCTION

105:0.1 (1152:1) TO EVEN high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infinity is only partially comprehensible, and the finality of reality is only relatively understandable. The human mind, as it seeks to penetrate the eternity-mystery of the origin and destiny of all that is called *real*, may helpfully approach the problem by conceiving eternity-infinity as an almost limitless ellipse which is produced by one absolute cause, and which functions throughout this universal circle of endless diversification, ever seeking some absolute and infinite potential of destiny.

105:0.2 (1152:2) When the mortal intellect attempts to grasp the concept of reality totality, such a finite mind is face to face with infinity-reality; reality totality is infinity and therefore can never be fully comprehended by any mind that is subinfinite in concept capacity.

105:0.3 (1152:3) The human mind can hardly form an adequate concept of eternity existences, and without such comprehension it is impossible to portray even our concepts of reality totality. Nevertheless, we may attempt such a presentation, although we are fully aware that our

개념들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음도 잘 안다.

concepts must be subjected to profound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modification to the comprehension level of mortal mind.

1. 자존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

여러 우주의 철학자들은, 무한 속에서 절대 시초의 원인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자존자**{自存者}로서 활동하시는 **만유의 아버지**께 있다고 추정한다.

이 무한한 **자존자** 개념을 필사 지능에게 제시하는 데에는, 뒤따르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개념은 인간이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가치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존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은, 절대적 기원{起源}과 무한한 운명을 부분적으로 납득해보려고 시도하도록, 유한한 존재들에게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체의 발생 및 결실{結實}을 밝히려고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든지, 이 **자존자** 개념은, 모든 인격의 의미 및 가치에서 **신격의 제1 인격자**, 즉 모든 인격체의 **만유의 아버지**와 똑같은 의미임을 분명히 해두자. 하지만 이 **자존자**라는 가정{假定}은, 신격화되지 않은 우주 실체의 영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될 수 없다.

자존자는 무한자이며; **자존자**는 또한 무한이시다. 연속되는 시간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실체는 무한하신 **자존자** 안에서 기원되는데, 과거의 무한한 영원성 속에 그가 홀로 실존했다는 것이, 유한한 피조물의 첫째 철학적 가정이 돼야 한다. **자존자** 개념은, 무조건적 무한대, 즉 무한한 영원 전체 속에서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직 분화{分化}되지 않은, 그런 실체를 암시한다.

실존적 개념으로서 **자존자**는, 신격화되지 않고 비신격화되지도 않으며, 실제적이지 않고 잠재적이지도 않으며,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지도 않으며, 정적{靜的}이지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다. **자존자**가 **계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제한조건도 **무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자존자**라는 철학적 가정은, **무조건 절대자** 개념보다 납득하기가 다소 더 어려운, 하나의 우주 개념이다.

유한한 정신에게는 단순히 어떤 시작이 있어야 하며, 실체에게 어떤 진정한 시작이 결코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실체가 무한으로 나타나는 어떤 근원적 관계들이 있다. 실체 이전{以前}의, 근본적인, 영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무한히 먼, 가정{假定}하는, 영원한 과거의 어떤 순간에 **자존자**는, 물체이자 비{非}물체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의지작용과 반응으로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하는 이런 영원의 순간에는 무한 전반에 아무런 분화{分化}가 없었다. 무한은 **무한자**로 채워지고; **무한자**는 무한을 포함한다. 이것이 영원에 대해서 가정한 정적{靜的} 순

1.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105:1.1 (1152:4) Absolute primal causation in infinity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s attribute to the Universal Father functioning as the infinite, the eternal, and the absolute I AM.

105:1.2 (1152:5) There are many elements of danger attendant upon the presentation to the mortal intellect of this idea of an infinite I AM since this concept is so remote from human experiential understanding as to involve serious distortion of meanings and misconception of values. Nevertheless,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does afford finite beings some basis for an attempted approach to the partial comprehension of absolute origins and infinite destinies. But in all our attempts to elucidate the genesis and fruition of reality, let it be made clear that this concept of the I AM is, in all personality meanings and values, synonymous with the First Person of Deity, the Universal Father of all personalities. But this postulate of the I AM is not so clearly identifiable in undeified realms of universal reality.

105:1.3 (1152:6) *The I AM is the Infinite; the I AM is also infinity.* From the sequential, time viewpoint, all reality has its origin in the infinite I AM, whose solitary existence in past infinite eternity must be a finite creature's premier philosophic postulate. The concept of the I AM connotes *unqualified infinity*, the undifferentiated reality of all that could ever be in all of an infinite eternity.

105:1.4 (1153:1) As an existential concept the I AM is neither deified nor undeified, neither actual nor potential, neither personal nor impersonal, neither static nor dynamic. No qualification can be applied to the Infinite except to state that the I AM *is*. The philosophic postulate of the I AM is one universe concept which is somewhat more difficult of comprehension than tha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5:1.5 (1153:2) To the finite mind there simply must be a beginning, and though there never was a real beginning to reality, still there are certain source relationships which reality manifests to infinity. The pre-reality, primordial, eternity situation may be thought of something like this: At some infinitely distant, hypothetical, past-eternity moment, the I AM may be conceived as both thing and no thing, as both cause and effect, as both volition and response. At this hypothetical eternity moment there is no differentiation throughout all infinity. Infinity is filled by the Infinite; the Infinite

간이며;실상은 그들의 잠재성 속에 아직 가둬진 상태였고, 잠재성은 **자존자**의 무한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는 상황에서, 자아_의지의 가능성이 실존함을 가정해야 한다.

사람이 **만유의 아버지**를 납득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임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필사자도 납득할 수 있지만;너희가 *체험적으로 경배할만한 만유의 아버지* 개념은, **제1 근원 및 중심**, 즉 **자존자**가 무한하시다는 너희의 철학적 가정보다 반드시 작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고등(高等) 피조물과 하등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뜻하지만, **신격**에게는 우주의 피조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 네 **아버지**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실체로서 우리가 감지하는, **무한자**의 그 국면이지만, **자존자**는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가정(假定)으로서 항상 남아 계신다. 그리고 그 가정조차 원래 실체의 광대한 무한성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온갖 우주는, 거기에 거주하는 무수한 무리의 인격체들과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에 해당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은 그의 의도적 지시에 반응해서 실재하게 된, 우주들 및 인격체들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다. 네가 총괄우주의 장관(壯觀)을 보고 놀라며 서 있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창조조차 **무한자**의 부분적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무한은, 필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체험 수준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지만, **유란시아**에서 이 시대에도, 무한에 대한 너희의 개념은 점점 자라가고 있으며, 미래의 영원을 향해서 앞으로 뻗어가는 너희의 끝없는 생애들 내내 계속 자라갈 것이다. 조건 없는 무한은 유한한 피조물에게 무의미하지만, 무한은 스스로_제한할 수 있고 모든 수준의 우주 실존들에게 실체의 표현을 허용한다. 그리고 **무한자**가 모든 우주 인격체를 향해서 돌리는 그 얼굴은, **아버지**, 즉 사랑이 넘치는 **만유의 아버지**의 얼굴이다.

2. 삼중 및 칠중으로서의 자존자

실체의 기원을 고려할 때, 모든 절대 실체가 영원부터 있다는 것과, 실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우리는 **신격**의 세 실존적 인격자, **낙원 섬**, 그리고 세 **절대자**를 절대 실체로 언급한다. 우리가 일곱 실체의 연속되는 기원을 인간에게 제시할 때 시_공간 언어에 의존할 지라도, 이 일곱 실체는 대등하게 영원하다.

encompasses infinity. This is the hypothetical static moment of eternity; actuals are still contained within their potentials, and potentials have not yet appeared within the infinity of the I AM. But even in this conjectured situation we must assume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of self-will.

105:1.6 (1153.3) Ever remember that man's comprehens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a personal experience. God, as your spiritual Father, is comprehensible to you and to all other mortals; but your experiential worshipfu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must always be less than your philosophic postulate of the infin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I AM. When we speak of the Father, we mean God as he is understandable by his creatures both high and low, but there is much more of Deity which is not comprehensible to universe creatures. God, your Father and my Father, is that phase of the Infinite which we perceive in our personalities as an actual experiential reality, but the I AM ever remains as our hypothesis of all that we feel is unknowabl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even that hypothesis probably falls far short of the unfathomed infinity of original reality.

105:1.7 (1153.4) The universe of universes, with its innumerable host of inhabiting personalities, is a vast and complex organism, bu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ly more complex than the universes and personalities which have become real in response to his willful mandates. When you stand in awe of the magnitude of the master universe, pause to consider that even this inconceivable creation can be no more than a partial revelation of the Infinite.

105:1.8 (1153.5) Infinity is indeed remote from the experience level of mortal comprehension, but even in this age on Urantia your concepts of infinity are growing, and they will continue to grow throughout your endless careers stretching onward into future eternity. Unqualified infinity is meaningless to the finite creature, but infinity is capable of self-limitation and is susceptible of reality expression to all levels of universe existences. And the face which the Infinite turns toward all universe personalities is the face of a Father, the Universal Father of love.

2. THE I AM AS TRIUNE AND AS SEVENFOLD

105:2.1 (1153.6) In considering the genesis of reality, ever bear in mind that all absolute reality is from eternity and is without beginning of existence. By absolute reality we refer to the three existential persons of Deity, the Isle of Paradise, and the three Absolutes. These seven realities are co-ordinately eternal, notwithstanding that we resort to time-space language in presenting their sequential origins to human beings.

실체의 기원을 연대{年代} 순으로 계속 설명하려면, **자존자** 안에 “최초”의 의지가 표현되고, 이 영향에 “최초”로 반응하는,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실체의 기원과 발생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이 단계는 **무궁한 존재**에서 **무한한 분**이 스스로 분리하는 것으로 상상해도 되지만, 이런 이중 관계의 가정{假定}은, **무한자**, 즉 **자존자**가 영원히 연속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삼중 개념작용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확장해야 한다.

자존자가 이렇게 스스로 변신하시는 것은, 신격화된 실체와 비신격화된 실체,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실체,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실체들로 마침내 다양하게 분화{分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론적으로 일원적인 **자존자**의 이런 분화는, 바로 그 **자존자** 안에서 일어나는 동시적 관계들로 인해 영원히 통합된다--이 **자존자**는 잠재이전이고, 실제이전이고, 인격이전인, 홀로단정적인 선{先}실체인데, 이 선실체는 무한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현존에서 절대로서 드러나고,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인격으로서 드러난다.

자존자는, 이런 내부 변신으로 말미암아, 칠중{七重}의 자아_관계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혼자인 **자존자**라는 철학적 (한때의) 개념과, 삼중으로서 과도기적 (한때의) **자존자** 개념은, 이제 **자존자**를 칠중으로 포함할 만큼 확장될 수 있다. 이 칠중--곧 일곱 현상--의 본성은, **일곱 무한 절대자**에 대한 관계로 제시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른다:

1.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이신 **자존자**. 이것은 실재하는 자들의 원초적 인격 관계다. **아들**의 절대 인격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인격체의 잠재적 아들신분을 설립한다. 이 관계는, **무한자**가 인격 체임을 확증하고, 그 영적 계시를 **원본 아들**의 인격 안에서 완성한다.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필사자들도, **자존자**의 이 단계를 영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다.

2. **우주 통제관**. 영원한 **낙원**의 원인인 **자존자**. 이것은 실재하는 자들의 원초적 비인격자 관계, 즉 원래의 비{非}영적 연합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통제관**은 원형{原型}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는 형태--곧 구성--의 잠재성을 설정하고, 비인격적 관계와 비영적 관계의 기본 원형--곧 모든 복사본을 만들게 하는 근본 원형--을 결정한다.

3. **우주의 창조주. 영원한 아들과 하나인 자존자**. (낙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합동이 창조적 순환을 개시하는데, 공동 인격체와 영원한 우주의

105:2.2 (1154.1) In following the chronological portrayal of the origins of reality, there must be a postulated theoretical moment of “first” volitional expression and “first” repercussional reaction within the I AM. In our attempts to portray the genesis and generation of reality, this stage may be conceived as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Infinite One* from *The Infinitude*, but the postulation of this dual relationship must always be expanded to a triune conception by the recognition of the eternal continuum of *The Infinity*, the I AM.

105:2.3 (1154.2) This self-metamorphosis of the I AM culminates in the multiple differentiation of deified reality and of undeified reality, of potential and actual reality, and of certain other realities that can hardly be so classified. These differentiations of the theoretical monistic I AM are eternally integrated by simultaneous relationships arising within the same I AM — the prepotential, preactual, prepersonal, monothetic preality which, though infinite, is revealed as absolute in the pre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personality in the limitless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105:2.4 (1154.3) By these internal metamorphoses the I AM is establishing the basis for a sevenfold self-relationship. The philosophic (time) concept of the solitary I AM and the transitional (time) concept of the I AM as triune can now be enlarged to encompass the I AM as sevenfold. This sevenfold — or seven phase — nature may be best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2.5 (1154.4) 1. *The Universal Father*. I AM father of the Eternal Son. This is the primal personality relationship of actualities.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Son makes absolute the fact of God’s fatherhood and establishes the potential sonship of all personalities. This relationship establishes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and consummates its spiritual revelation in the personality of the Original Son. This phase of the I AM is partially experiencible on spiritual levels even by mortals who, while yet in the flesh, may worship our Father.

105:2.6 (1154.5) 2. *The Universal Controller*. I AM cause of eternal Paradise. This is the primal impersonal relationship of actualities, the original nonspiritual association. The Universal Father is God-as-love; the Universal Controller is God-as-pattern. This relationship establishes the potential of form — configuration — and determines the master pattern of impersonal and nonspiritual relationship — the master pattern from which all copies are made.

105:2.7 (1154.6) 3. *The Universal Creator*. I AM one with the Eternal Son. This un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presence of Paradise) initiates the

출현에서 완성된다. 유한한 필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 창조가 영원히 출현함과 함께 실체가 정말로 시작된다. **신격**의 이런 창조 활동은, **행동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동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본질적으로 그는, 실재하는 것들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에 대하여 명시된, **아버지_아들**의 통일이다. 따라서 신성한 창조성은, 틀림없이 통일된 특징을 가지며, 이런 통일성은, 이원{二元}인 **아버지_아들**의 절대적 하나 됨과 **아버지_아들_영의 삼위일체**가 바깥으로 반사된 것이다.

4. **무한한 유지자**. 스스로_연합하는 **자존자**. 이것은 실체의 근본적인 정적{靜的} 및 잠재적 연합이다. 이 관계에서,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모두가 보정{補正}된다. **자존자**의 이 국면은, **우주 절대자**--곧 **신격**과 **무조건 절대자**들을 통합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5. **무한한 잠재력**. 스스로_제한한 **자존자**. 이것은 **자존자**가 의지로 스스로를_제한함에 대해서 영원히 증거 하는 무한의 기준점이며, 그 덕분에 삼중적 자기_표현과 자기_게시가 이뤄졌다. **자존자**의 이 국면을 대개 **신격 절대자**라고 이해한다.

6. **무한한 수용력**. 정적{靜的}이면서_반응하는 **자존자**. 이것은 끝없는 행렬, 즉 미래에 모든 시공우주가 확장할 가능성이다. **자존자**의 이 국면은, 아마 인력{引力}을 초월하는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7. **무한성을 지닌, 우주의 한 분. 자존자**로서 **자존자**. 이것은 **무한자**의 균형 상태 또는 자아_관계, 즉 무한한_실체가 영원한 사실이요 실체가_무한하다는 보편적 진리다. 이 관계가 인격체라고 식별될 수 있는 한, 모든 인격체의--심지어 절대 인격체의--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 우주들에게 드러난다. 이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우주들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절대 통일로서 이를 접촉한다. 이 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탁월함에서 드러나며;공간에 있는 피조물로부터 **낙원**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누리며;이것은 무한소{無限小} 궁극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괄우주에서도 똑같이 참말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똑같이 참말일 것이다.

3. 일곱 무한 절대자

자존자 안에서 근원적인 일곱 관계는, **일곱 무한 절대자**로서 영존{永存}한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체 기원들과 무한성

creative cycle, which is consummated in the appearance of conjoint personality and the eternal universe. From the finite mortal's viewpoint, reality has its true beginnings with the eternity appearance of the Havona creation. This creative act of Deity is by and through the God of Action, who is in essence the unity of the Father-Son manifested on and to all levels of the actual. Therefore is divine creativity unflinching characterized by unity, and this unity is the outward reflection of the absolute oneness of the duality of the Father-Son and of the Trinity of the Father-Son-Spirit.

105:2.8 (1155.1) 4. *The Infinite Upholder*. I AM self-associative. This is the primordial association of the statics and potentials of reality. In this relationship, all qualifieds and unqualifieds are compensated. This phase of the I AM is best understood as the Universal Absolute — the unifier of the Deity and the Unqualified Absolutes.

105:2.9 (1155.2) 5. *The Infinite Potential*. I AM self-qualified. This is the infinity bench mark bearing eternal witness to the volitional self-limitation of the I AM by virtue of which there was achieved threefold self-expression and self-revelation. This phase of the I AM is usually understood as the Deity Absolute.

105:2.10 (1155.3) 6. *The Infinite Capacity*. I AM static-reactive. This is the endless matrix, the possibility for all future cosmic expansion. This phase of the I AM is perhaps best conceived as the supergravity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5:2.11 (1155.4) 7. *The Universal One of Infinity*. I AM as I AM. This is the stasis or self-relationship of Infinity, the eternal fact of infinity-reality and the universal truth of reality-infinity.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discernible as personality, it is revealed to the universes in the divine Father of all personality — even of absolute personality.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impersonally expressible, it is contacted by the universe as the absolute coherence of pure energy and of pure spirit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conceivable as an absolute, it is revealed in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n him we all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from the creatures of space to the citizens of Paradise; and this is just as true of the master universe as of the infinitesimal ultimatons, just as true of what is to be as of that which is and of what has been.

3.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3.1 (1155.5) The seven prime relationships within the I AM eternalize as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But though we may portray reality origins and infinity differentiation by a sequential narrative,

구분을 설명하더라도, 사실은 일곱 **절대자**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대등하게 영원하다. 필사 정신은 그들의 시초{始初}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곱 **절대자**에게 시작이 없었음을 깨달음으로 이 생각을 항상 물리쳐야 하며; 그들은 영원하고 그렇게 항상 존재해 왔다. 일곱 **절대자**는 실체의 전제조건이다. 그들은 본 문서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돼 왔다:

1. **제1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1 인격자**이며 근본적인 비신격 원형,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창조자, 통제관, 유지자, 우주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의 에너지; 모든 잠재성의 잠재성이고 모든 실체하는 것들의 근원; 모든 정적인 것의 안정성이고 모든 변화의 원동력; 원형의 근원이고 인격자들의 **아버지**. 집단으로서, 일곱 **절대자** 전체는 무한성과 동등하지만, **만유의 아버지** 자신은 실제로 무한하다.

2. **제2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2 인격자, 영원한 원본 아들; 자존자의 절대 인격 실체들**이며, “**자존자 인격**”을 실현하고 계시하기 위한 기초. 어떤 인격체도, **영원한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유의 아버지**에게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모든 인격체의 이 절대 원형의 조처와 도움 없이는, 아무 인격체도 영 수준의 실존에 도달할 수도 없다. **제2 근원 및 중심** 안에서, 영은 무조건적이고 한편 인격은 절대적이다.

3. **낙원 근원 및 중심. 제2 비신격{非神格} 원형, 영원한 낙원 섬; 자존자 세력**을 실현하고 계시하기 위한 기초이며, 우주 전반에 걸친 인력{引力} 통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토대. 실체화된, 비영적인, 비인격적인, 그리고 의지가 없는 모든 실체에게, **낙원**은 절대 원형{原型}이다. 영 에너지가, **어머니이신 아들**의 절대 인격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와 관련됨과 똑같이, 모든 시공우주 에너지는, **낙원 섬**이라는 절대 원형을 통해서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력 통제에 붙잡혀 있다. **낙원**은 공간 속에 있지 않으며; 공간은 **낙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상습적인 움직임은 **낙원**과 갖는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 영원한 **섬**은 절대로 안정돼 있으며; 조직돼 있고 조직하는 다른 모든 에너지는 영원히 움직이고 있으며; 전체 공간 속에서, 오직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만 정지돼 있고, **무조건자**는 **낙원**과 조화를 이룬다. **낙원**은 공간의 초점에 존재하고, **무조건자**가 공간을 채우고, 모든 상대적 실존은 이 영역 안에서 그 존재를 누린다.

4. **제3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3 인격자, 공동 행위자; 낙원의 시공우주 에너지를, 영원한 아들**의 영 에너지와 무한히 결합시키는 존재; 의지의 동기와 세력의 역학을 완전하게 조정하는 자; 모든 실체하는 실체와, 실현해가는 실체를 통합하는 자. **무한한 영**은, 자신의 다양한 자녀의 보살핌을 통

in fact all seven Absolutes are unqualifiedly and co-ordinately eternal. It may be necessary for mortal minds to conceive of their beginnings, but always should this conception be overshadowed by the realization that the seven Absolutes had no beginning; they are eternal and as such have always been. The seven Absolutes are the premise of reality. They have been described in these papers as follows:

105:3.2 (1155.6) 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irst Person of Deity and primal nondeity pattern, God, the Universal Father, creator, controller, and upholder; universal love, eternal spirit, and infinite energy; potential of all potentials and source of all actuals; stability of all statics and dynamism of all change; source of pattern and Father of persons. Collectively, all seven Absolutes equalate to infinity, but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actually is infinite.

105:3.3 (1155.7) 2.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Second Person of Deity, the Eternal and Original Son; the absolut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I AM and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revelation of “I AM personality.” No personality can hope to attain the Universal Father except through his Eternal Son; neither can personality attain to spirit levels of existence apart from the action and aid of this absolute pattern for all personalities. I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spirit is unqualified while personality is absolute.

105:3.4 (1156.1) 3. *The Paradise Source and Center.* Second nondeity patter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revelation of “I AM force” an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gravity control throughout the universes. Regarding all actualized, nonspiritual, impersonal, and nonvolitional reality,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Just as spirit energy is related to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Mother-Son, so is all cosmic energy grasped in the gravity contro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rough the absolute pattern of the Paradise Isle. Paradise is not in space; space exists relative to Paradise, and the chronicity of motion is determined through Paradise relationship. The eternal Isle is absolutely at rest; all other organized and organizing energy is in eternal motion; in all space, only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s quiescent, and the Unqualified is co-ordinate with Paradise. Paradise exists at the focus of space, the Unqualified pervades it, and all relative existence has its being within this domain.

105:3.5 (1156.2) 4.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ird Person of Deity, the Conjoint Actor; infinite integrator of Paradise cosmic energies with the spirit energies of the Eternal Son; perfect co-ordinator of the motives of will and the mechanics of force; unifier of all actual and actualizing reality.

해서, **영원한 아들**의 자비를 드러내는 동시에 무한한 조종자 역할을 하고, 공간의 에너지 속으로 **낙원**의 원형을 영원히 엮어 넣는다. 바로 이 **공동 행위자**, 즉 이 **행동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계획과 목적을 완전하게 표현한 분이며, 한편 그 자신은 광범한 시공우주의 피조물에게 정신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지능을 수여하는 자로서 작용한다.

5. **신격절대자**. 우주 실체의 원인이 되고 잠재적으로 인격자가 될 가능성, **신격**의 전체 잠재성의 총합.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비신격인 실체들을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분이다. **신격 절대자**는 절대적인 것을 제한하는 분이며, 제한하는 것들을 절대화하는 분이다--곧 운명 개시자다.

6. **무조건 절대자**. 정적(靜的)이고, 반응하고, 정지된 **자존자**의 계시되지 않은 시공우주 무한성; 비신격화된 실체의 전체성 및 모든 최종 비인격적 잠재성. 공간이 **무조건자**의 역할을 제한하지만, **무조건자**의 현존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 총괄우주에는 개념적 외주(外周)가 있지만, **무조건자**의 현존은 무한하며; 영원조차 이런 비신격 **절대자**의 끝없는 정지상태를 고갈시키지 못한다.

7. **우주 절대자**. 신격화된 존재와 신격화되지 않은 존재를 통합시키는 자;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연관시키는 자. **우주 절대자**는 (정적이고 잠재적이고 연합하기 쉬우므로) 항상 존재하는 것과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상태를 보상한다.

일곱 무한 절대자는 실체의 시초를 구성한다. 필사 지성인들이 간주하고 싶어 하는 바와 같이,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절대보다 앞서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도움은 되더라도, **아들**, **영**, 세 **절대자**, 및 **낙원 섬**이 영원히 공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절대자들이 자존자 제1 근원 및 중심의 형태화라는 것은 **진리**이며; 이 **절대자**들에게는 결코 시작이 없었지만, **제1 근원 및 중심**과 동등한 영원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영원 속에서 절대적인 것들의 관계는, 시간이라는 용어에,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 원형에 모순(矛盾)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일곱 무한 절대자**의 기원에 관한 어떤 혼동에도 관계없이, 모든 실체가, 그들이 영원히 실존하는 것과, 무한한 관계들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사실인 동시에 진리다.

Through the ministrations of his manifold children the Infinite Spirit reveals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while at the same time functioning as the infinite manipulator, forever weaving the pattern of Paradise into the energies of space. This selfsame Conjoint Actor, this God of Action,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limitless plans and purposes of the Father-Son while functioning himself as the source of mind and the bestower of intellect upon the creatures of a far-flung cosmos.

105:3.6 (1156.3) 5. *The Deity Absolute*. The causational, potentially personal possibilities of universal reality, the totality of all Deity potential. The Deity Absolute is the purposive qualifier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nondeity realities. The Deity Absolute is the qualifier of the absolute and the absolutizer of the qualified — the destiny inceptor.

105:3.7 (1156.4) 6. *The Unqualified Absolute*. Static, reactive, and abeyant; the unrevealed cosmic infinity of the I AM; totality of nondeified reality and finality of all nonpersonal potential. Space limits the function of the Unqualified, but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is without limit, infinite. There is a concept periphery to the master universe, but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is limitless; even eternity cannot exhaust the boundless quiescence of this nondeity Absolute.

105:3.8 (1156.5) 7. *The Universal Absolute*. Unifier of the deified and the undeified; correlator of the absolute and the relative. The Universal Absolute (being static, potential, and associative) compensates the tension between the ever-existent and the uncompleted.

105:3.9 (1156.6)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constitute the beginnings of reality. As mortal minds would regard i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ould appear to be antecedent to all absolutes. But such a postulate, however helpful, is invalidated by the eternity coexistence of the Son, the Spirit, the three Absolutes, and the Paradise Isle.

105:3.10 (1157.1) It is a *truth* that the Absolutes are manifestations of the I AM-First Source and Center; it is a *fact* that these Absolutes never had a beginning but are co-ordinate eternals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relationships of absolutes in eternity cannot always be presented without involving paradoxes in the language of time and in the concept patterns of space. But regardless of any confusion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it is both fact and truth that all reality is predicated upon their eternity existence and infinity relationships.

4. 단일체, 이중체, 삼중체

4. UNITY, DUALITY, AND TRIUNITY

우주를 연구하는 현자{賢者}들은, **자존자**의 영원성 실존을 모든 실체의 시초 근원이라고 가정한다. 그와 동시에, **자존자**가 여러 원초적 자아_관계로--곧 무한성의 일곱 단계로-- 스스로_분할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설과 동시에, --**일곱 무한 절대자**가 영원에 출현했고, **자존자**의 일곱 국면과 이 일곱 **절대자**의 이중체{二重體} 연합이 영원하게 됐다는-- 셋째 가정이 있다.

자존자의 자아_계시는, 이처럼 정지된 자아로부터, 자아_분할과 자아_관계를 거치고, 절대관계까지, 즉 스스로_파생한 **절대자**들과 갖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이중체는, **일곱 무한 절대자**가 자신을_드러내는 **자존자**의 자아_분할 국면에서, 칠중{七重} 무한성과 영원히 연합됨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중적 관계들은, 우주들에게 일곱 **절대자**로서 영구화{永久化} 되면서, 모든 우주 실체를 위해 기본적인 기초들을 영구화시킨다.

단일체가 이중체를 낳는다는 것, 이중체가 삼중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삼중체가 모든 사물의 영원한 조상이라는 것을 언젠가 진술한 적이 있다. 중대한 세 계층의 근본 관계들이 정말로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단일체 관계.** **자존자**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 이 관계들의 통일은 삼중 자아_분화{分化}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칠중 자아_분화로 생각되는 바와 같다.

2. **이중체 관계.** 칠중인 **자존자**와 **일곱 무한 절대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

3. **삼중체 관계.** 이 관계들은 **일곱 무한 절대자**의 기능적 연합이다.

절대자의 상호연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삼중체 관계들은 이중체 기초 위에서 생겨난다. 그런 삼중체 연합들은 모든 실체의 잠재성을 영구화시키며; 신격화된 실체와 비신격화된 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자존자는 통일체로서 무조건적 무한이다. 이중체들은 실체의 기초들을 영구화시킨다. 삼중체들은 보편적 기능으로서 결국 무한을 실현한다.

선제하는 것들은 일곱 **절대자** 안에서 실존적이 되며, 실존하는 것들은, 삼중체들, 즉 **절대자**들의 기본 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삼중체들이 영구화됨과 동시에, 우주의 무대가 준비되고--곧 잠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실재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영원성이 충만해지면 시공우주 에너지가 다양해지고, **낙원** 영이 퍼져나가고, 인격증여와 함께 정신 기증이나 나타나는데, 이 덕분에, 모든 **신격** 및 **낙원** 파생물들은 피조물 수준에서 체험으로 통합되고, 피조물을 초월하는 수준에

105:4.1 (1157.2) The universe philosophers postulate the eternity existence of the I AM as the primal source of all reality. And concomitant therewith they postulate the self-segmentation of the I AM into the primary self-relationships — the seven phases of infinity. And simultaneous with this assumption is the third postulate — the eternity appearance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and the eternalization of the duality association of the seven phases of the I AM and these seven Absolutes.

105:4.2 (1157.3) The self-revelation of the I AM thus proceeds from static self through self-segmentation and self-relationship to absolut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 self-derived Absolutes. Duality becomes thus existent in the eternal association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with the sevenfold infinity of the self-segmented phases of the self-revealing I AM. These dual relationships, eternalizing to the universes as the seven Absolutes, eternalize the basic foundations for all universe reality.

105:4.3 (1157.4) It has been sometime stated that unity begets duality, that duality begets triunity, and that triunity is the eternal ancestor of all things. There are, indeed, three great classes of primordial relationships, and they are:

105:4.4 (1157.5) 1. *Unity relationships.* Relations existent within the I AM as the unity thereof is conceived as a threefold and then as a sevenfold self-differentiation.

105:4.5 (1157.6) 2. *Duality relationships.* Relations existent between the I AM as sevenfold and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4.6 (1157.7) 3. *Triunity relationships.* These are the functional associations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4.7 (1157.8) Triunity relationships arise upon duality foundations because of the inevitability of Absolute interassociation. Such triunity associations eternalize the potential of all reality; they encompass both deified and undeified reality.

105:4.8 (1157.9) The I AM is unqualified infinity as *unity*. The dualities eternalize reality *foundations*. The triunities eventuate the realization of infinity as *universal function*.

105:4.9 (1157.10) Pre-existentials become existential in the seven Absolutes, and existentials become functional in the triunities, the basic association of Absolutes. And concomitant with the eternalization of the triunities the universe stage is set — the potentials are existent and the actuals are present — and the fullness of eternity witnesses the diversification of cosmic energy, the outspreading of Paradise spirit, and the endowment of mind together with the bestowal of personality, by virtue of which all of these Deity and Paradise

서는 다른 기법으로 통합된다.

derivatives are unified in experience on the creature level and by other techniques on the supercreature level.

5. 유한한 실체의 확산

자존자의 원래 다양화를, 선천적인 자기 충족 의지작용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실체의 확산에 대해서는, **낙원 신격**의 의지로 하는 여러 작용, 그리고 기능적 삼중체들이 반응해서 조정하는 탓으로 돌려야 한다.

유한계{有限界}가 신격화되기 전에는, 모든 실체의 다양화가 절대 수준에서 일어난 듯이 보였지만; 의지로 하는, 유한한 실체를 확산시키는 행동은, 절대성이 제한됨을 의미하고, 상대적인 것들이 출현함을 암시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제시하고, 유한계의 역사적 출현을, 절대자들로부터 직접 파생된 것으로 묘사하지만, 초월자들은 유한한 모든 것보다 앞서고 또한 뒤따랐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월 궁극자들은, 유한계와 갖는 관계에서, 원인인 동시에 완결이다.

유한한 가능성은 **무한자**에 내재적이지만, 가능성이 개연성(蓋然性)과 필연성으로 변질되는 것은, 모든 삼중체 연합을 활성화시키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스스로 실존하는 자유의지 탓으로 돌려야 한다. 오직 **아버지** 뜻의 무한성만이, 결국 한 궁극자가 생기게 하거나 한 유한자를 창조하도록, 절대 수준의 존재를 일찍이 제한할 수 있었다.

상대적이고 제한된 실체의 출현과 함께, 실체의 새로운 주기(週期)--곧 성장 주기--가 존재하게 되며, 이것은 무한대의 절정에서 유한계 영역으로 당당하게 아래쪽으로 굽히는 것이요, 유한계는 **낙원**과 **신격**을 향해 영원히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무한 근원에 알맞은 높은 수준의 운명을 항상 추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진행사항이 우주 역사의 시초를 장식하고, 시간 그 자체가 실존하게 되는 것을 표시한다. 한 피조물에게, 유한계의 시작은 실체의 시초 *이며*; 피조물 정신이 보건대, 유한계 이전에, 상상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유한한 실체는 원래의 두 국면에서 존재한다:

1. 1차 극대존재들, 최상으로 완전한 실체, **하보나** 유형의 우주와 피조물.

2. 2차 극대존재들, 최상으로 완전하게 된 실체, 연방우주 유형의 피조물과 창조.

그 다음에, 이들은 원래의 두 형태화 즉: 구조적으로 완전한 자와, 진화로 완전하게 된 자다. 이

5.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105:5.1 (1158.1) Just as the original diversification of the I AM must be attributed to inherent and self-contained volition, so must the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be ascribed to the volitional acts of Paradise Deity and to the repercussional adjustments of the functional triunities.

105:5.2 (1158.2) Prior to the deitization of the finite, it would appear that all reality diversification took place on absolute levels; but the volitional act promulgating finite reality connotes a qualification of absoluteness and implies the appearance of relativities.

105:5.3 (1158.3) While we present this narrative as a sequence and portray the historic appearance of the finite as a direct derivative of the absolut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ranscendentals both preceded and succeeded all that is finite. Transcendental ultimates are, in relation to the finite, both causal and consummational.

105:5.4 (1158.4) Finite possibility is inherent in the Infinite, but the transmutation of possibility to probability and inevitability must be attributed to the self-existent free wil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ctivating all triunity associations. Only the infinity of the Father's will could ever have so qualified the absolute level of existence as to eventuate an ultimate or to create a finite.

105:5.5 (1158.5) With the appearance of relative and qualified reality there comes into being a new cycle of reality — the growth cycle — a majestic downsweep from the heights of infinity to the domain of the finite, forever swinging inward to Paradise and Deity, always seeking those high destinies commensurate with an infinity source.

105:5.6 (1158.6) These inconceivable transactions mark the beginning of universe history, mark the coming into existence of time itself. To a creature, the beginning of the finite is the genesis of reality; as viewed by creature mind, there is no actuality conceivable prior to the finite. This newly appearing finite reality exists in two original phases:

105:5.7 (1158.7) 1. *Primary maximums*, the supremely perfect reality, the Havona type of universe and creature.

105:5.8 (1158.8) 2. *Secondary maximums*, the supremely perfected reality, the superuniverse type of creature and creation.

105:5.9 (1158.9) These, then, are the two original manifestations: the constitutively perfect and the

들은 영원성 관계에서 동등하지만, 시간의 한계 속에서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인다. 시간 요소는 성장하는 것들에게 성장을 의미하고, 2차 유한자들은 성장하며; 따라서 성장하는 자는 시간세계에서 미완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낙원**의 이쪽 편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영원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자와 완전하게 된 자에 대해서 1차 및 2차 극대존재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유형도 존재한다: 1차인 자들과 2차인 자들 사이에, **삼위일체처럼됨** 및 기타 여러 관계는, 3차 극대존재들의 출현을 초래한다--이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 완전하게 되지도 않지만, 조상이 되는 두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사물, 의미, 및 가치다.

6. 유한한 실체의 반응

유한한 실존들의 출현 전체가, 기능적 무한성의 절대적 연합 속에서, 잠재하는 것으로부터 실재하는 것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유한계의 창조적 현실화에 대한 많은 반응 가운데, 다음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격 반응**, 세 수준에서 체험적 지존성의 출현: **하보나**에서, 인격있는 영이 최상이라는 사실, 앞으로 이뤄질 광우주에서, 인격있는 권능이 최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총괄우주에서, 어떤 지존성 수준에서 작용하는 체험적 정신이 가진,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능을 위한 수용력.

2. **우주 반응**은 연방우주 공간 수준을 위한 건축양식 계획들이 활성화됨과 관련되며, 이 진화는 일곱 연방우주의 물리적 조직에 두루,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3. **피조물 반응**, **하보나**의 영원한 거주자 계통에서 완전한 존재들,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진화로 완성된, 상승하는 존재들의 출현으로 귀착되는 유한한 실체의 확산에 대해서. 그러나 진화하는 (시간_창조적) 체험으로 완전성을 달성함은, 출발지점이 완전성이 아닌 다른 무엇을 암시한다. 그래서 진화 창조에서 불완전함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 악의 기원이다. 부적응, 부조화, 및 갈등, 이 모든 것은, 물리적 우주들로부터 인격있는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진화로 성장하는 데 내재한다.

4. 진화로 인한 시간 지연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에 대한 **신성{神性}** 반응은, **칠중 하나님**의 보정하는 현존에서 드러나며,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자와 완전하게 된 자, 이 둘과 결합된다. 이 시간지연은 진화로

evolutionally perfected. The two are co-ordinate in eternity relationships, but within the limits of time they are seemingly different. A time factor means growth to that which grows; secondary finites grow; hence those that are growing must appear as incomplete in time. But these differences, which are so important this side of Paradise, are nonexistent in eternity.

105:5.10 (1158.10) We speak of the perfect and the perfected as primary and secondary maximums, but there is still another type: Trinitizing and other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maries and the secondaries result in the appearance of *tertiary maximums* — things, meanings, and values that are neither perfect nor perfected yet are co-ordinate with both ancestral factors.

6. REPERCUSSIONS OF FINITE REALITY

105:6.1 (1159.1) The entire promulgation of finite existences represents a transference from potentials to actuals within the absolute associations of functional infinity. Of the many repercussions to creative actualization of the finite, there may be cited:

105:6.2 (1159.2) 1. *The deity response*, the appearance of the three levels of experiential supremacy: the actuality of personal-spirit supremacy in Havona, the potential for personal-power supremacy in the grand universe to be, and the capacity for some unknown function of experiential mind acting on some level of supremacy in the future master universe.

105:6.3 (1159.3) 2. *The universe response* involved an activation of the architectural plans for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and this evolution is still progressing throughout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5:6.4 (1159.4) 3. *The creature repercussion* to finite-reality promulgation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perfect beings on the order of the eternal inhabitants of Havona and of perfected evolutionary ascender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to attain perfection as an evolutionary (time-creative) experience implies something other-than-perfection as a point of departure. Thus arises imperfection in the evolutionary creations. And this is the origin of potential evil. Misadaptation, disharmony, and conflict, all these things are inherent in evolutionary growth, from physical universes to personal creatures.

105:6.5 (1159.5) 4. *The divinity response* to the imperfection inherent in the time lag of evolution is disclosed in the compensating presence of God the Sevenfold, by whose activities that which is perfecting is integrated with both the perfect and the perfected. This time lag is inseparable from

부터 분리할 수 없는데, 진화는 시간세계에서 창조성이다. 다른 여러 이유는 물론, 시간 지연 때문에, **지존자**의 전능한 힘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 성취에 입각한다. 이 시간 지연은, 피조 인격체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발달을 달성하면서 **신격**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성한 창조에 피조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필사 피조물의 물질 정신조차, 불멸하는 혼을 이원화{二元化}시키는 일에 이처럼 신성한 **조율사**와 동역자가 된다. 또한 **칠중 하나님**은, 상승_이전{以前}에 불완전했던 한계를 보정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완전성의 체험적 한계를 보정하는 기법도 마련해 준다.

7. 초월자의 결말

초월자들은 무한 이하이고 절대 이하이지만, 유한 이상이고 피조물을 초월한다. 초월자들은, 절대자들의 초월가치를 유한자들의 최고 가치와 서로 연결해서 결합시키는 수준으로 생겨난다. 피조물 입장에서, 초월적인 것은 유한계의 결말로 보일 것이며; 영원성 관점에서는, 유한계를 예상하여 생겨난 것처럼 보일 것이며; 이것은 유한계를 “예시한_것”이라고 간주하는 자들이 있다.

초월적인 것이 반드시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것은 유한한 의미에서 진화를 초월하며; 게다가 비체험적인 것도 아니지만, 피조물에게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서 체험을 초월한다. 그런 역설의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완전한 중앙우주일 것인데: 중앙우주는 도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낙원** 섬만이 “물질화됐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절대적이다. 또한 그것은 일곱 연방우주와는 달리 유한한 진화 창조물도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우주라는 의미에서 변화가 없지는 않다. 피조물이(곧 **하보나** 원주민이) **하보나**에 거주하고, 그들은 실제로 창조된 적이 없는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보나**는, 완전하게 유한하지 않고 더욱이 절대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예증한다. 더 나아가 **하보나**는, 절대적인 **낙원**과 유한 창조계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작용하며, 게다가 초월자들의 기능을 밝혀준다. 그러나 **하보나** 자체는 초월적이지 않다--그것이 **하보나**다.

지존자가 유한자들과 관련되듯이, **궁극자**는 초월자들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자**와 **궁극자**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그들은 정도 차이 이외의 어떤 면에서 다르며; 그 차이는 또한 질적 문제다. **궁극자**는 초월 수준에 투사된, 초월_**지존자** 이상의 어떤 존재다. **궁극자**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 이상이다: **궁극자**는 새로운 **신격** 실체들의 결말, 즉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것의 새로운 여러 국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evolution, which is creativity in time. Because of it, as well as for other reasons,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is predicated on the divinity successes of God the Sevenfold. This time lag makes possible creature participation in divine creation by permitting creature personalities to become partners with Deity in the attainment of maximum development. Even the material mind of the mortal creature thus becomes partner with the divine Adjuster in the dualization of the immortal soul. God the Sevenfold also provides techniques of compensation for the experiential limitations of inherent perfection as well as compensating the preascension limitations of imperfection.

7.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S

105:7.1 (1159.6) Transcendentals are subinfinite and subabsolute but superfinite and supercreatural. Transcendentals eventuate as an integrating level correlating the supervalues of absolutes with the maximum values of finites. From the creature standpoint, that which is transcendental would appear to have eventuated as a consequence of the finite; from the eternity viewpoint, in anticipation of the finite; and there are those who have considered it as a “pre-echo” of the finite.

105:7.2 (1159.7) That which is transcendental is not necessarily nondevelopmental, but it is superevolutionary in the finite sense; neither is it nonexperiential, but it is superexperience as such is meaningful to creatures. Perhaps the best illustration of such a paradox is the central universe of perfection: It is hardly absolute — only the Paradise Isle is truly absolute in the “materialized” sense. Neither is it a finite evolutionary creation as are the seven superuniverses. Havona is eternal but not changeless in the sense of being a universe of nongrowth. It is inhabited by creatures (Havona natives) who never were actually created, for they are eternally existent. Havona thus illustrates something which is not exactly finite nor yet absolute. Havona further acts as a buffer between absolute Paradise and finite creations, still further illustrating the function of transcendentals. But Havona itself is not a transcendental — it is Havona.

105:7.3 (1160.1) As the Supreme is associated with finites, so the Ultimate is identified with transcendentals. But though we thus compare Supreme and Ultimate, they differ by something more than degree; the difference is also a matter of quality. The Ultimate is something more than a super-Supreme projected on the transcendental level. The Ultimate is all of that, but more: The Ultimate is an eventuation of new Deity realities, the qualification of new phases of the theretofore unqualified.

초월 수준과 관련된 그런 실체들 가운데는 다음이 있다:

1. 궁극자의 신격 현존.
2. 총괄우주의 개념.
3. 총괄우주의 구조.
4. 두 계층의 낙원 세력 조직자.
5. 공간 잠재력 속의 어떤 변경.
6. 영의 어떤 가치.
7. 정신의 어떤 의미.
8. 유한절대 특성 및 실체.
9. 전능, 전지{全知}, 및 편재{遍在}
10.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 초월, 및 절대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인격체들이 공연하고 에너지가 변질되는,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시공우주 무대다.

그리고 이 다양한 실체 전부를 여러 삼중체가 절대적으로 통합하고, **총괄우주 설계자들**이 기능적으로 통합하며, **일곱 으뜸 영**이 상대적으로 통합하는데, **오름 영**들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을 최상 수준보다 밑에서 조정한다.

칠중 하나님은, 최고 신분의 피조물과 최고 신분보다 밑에 있는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 및 신성이 계시됨을 의미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영적 사역이 형태화되는 것과 상관 없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칠중 관계가 있다.

영원한 과거에, **절대자**들의 세력, **신격**들의 영, 및 **하나님**들의 인격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_의지의 근본적 자아_의지에 반응해서 술령였다. 이런 우주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이 모든 실체의 무한한 잠재력이 준절대적 징후로 나타나는, 광범한 시공우주 광경에 대한 엄청난 반응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제1 근원 및 중심**의 원래 실체의 계속된 다양화가, 세월이 흘러가는 내내, 계속 반복해서, 아득히 멀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 무한대의 범위 속으로 전진하면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105:7.4 (1160.2) Among those real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transcendental level are the following:

- 105:7.5 (1160.3) 1. The Deity presence of the Ultimate.
- 105:7.6 (1160.4) 2. The concept of the master universe.
- 105:7.7 (1160.5) 3.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 105:7.8 (1160.6) 4. The two orders of Paradise force organizers.
- 105:7.9 (1160.7) 5. Certain modifications in space potency.
- 105:7.10 (1160.8) 6. Certain values of spirit.
- 105:7.11 (1160.9) 7. Certain meanings of mind.
- 105:7.12 (1160.10) 8. Absonite qualities and realities.
- 105:7.13 (1160.11) 9. Omnipotence,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 105:7.14 (1160.12) 10. Space.

105:7.15 (1160.13) The universe in which we now live may be thought of as existing on finite, transcendental, and absolute levels. This is the cosmic stage on which is enacted the endless drama of personality performance and energy metamorphosis.

105:7.16 (1160.14) And all of these manifold realities are unified *absolutely* by the several triunities, *functionally* by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relatively*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subsupreme co-ordinators of th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105:7.17 (1160.15) God the Sevenfold represents the personality and divinity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creatures of both maximum and submaximum status, but there are other sevenfold relationship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ich do not pertain to the manifestation of the divine spiritual ministry of the God who is spirit.

105:7.18 (1160.16) In the eternity of the past the forces of the Absolutes, the spirits of the Deities,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Gods stirred in response to the primordial self-will of self-existent self-will. In this universe age we are all witnessing the stupendous repercussions of the far-flung cosmic panorama of the subabsolute manifestations of the limitless potentials of all these realities. And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the continued diversification of the original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may proceed onward and outward throughout age upon age, on and on, into the faraway and inconceivable stretches of absolute infinity.

105:7.19 (116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6편. 실체의 우주 수준

⇨ 105

유란시아 책

10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6편
실체의 우주 수준

섹션

소개

1. 유한한 기능의 1차 연합
2. 최상의 2차 유한 통합
3. 초월적 3차 실체 연합
4. 궁극적 4차 통합
5. 공동절대, 즉 다섯째 국면의 연합
6. 절대, 즉 여섯째 국면의 종합
7. 운명의 완결
8.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9. 실존적인 무한한 통합

PAPER 106

UNIVERSE LEVELS OF REALITY

SECTIONS

Introduction

1. Primary Association of Finite Functionals
2. Secondary Supreme Finite Integration
3. Transcendental Tertiary Reality Association
4. Ultimate Quartan Integration
5. Coabsolute or Fifth-Phase Association
6. Absolute or Sixth-Phase Integration
7. Finality of Destiny
8. The Trinity of Trinities
9. Existential Infinite Unification

소개

상승하는 필사자는, 시공우주 실체의 발생 및 형태화와 **신격**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실존적인 실체와 체험적인 실체, 즉 잠재하는 실체와 실재하는 실체의 수많은 수준과 자신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무언가 납득해야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방향감각, 시공우주 통찰력, 그리고 영적 방향설정은 모두, 우주 실체들을 더 낮게 납득하고, 이것들이 상호연합되고 종합되고 통합되는 그 기법을 더 잘 납득함으로써 향상된다.

현재의 광우주와 떠오르는 총괄우주는 여러 형태와 국면의 실체로 구성돼 있고, 이것들은 다시 기능적 활동의 몇 가지 수준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실존하는 것들과 잠재하는 것들은 본 문서들에서 이미 제시됐으며, 이제 개념적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1. 불완전한 유한. 이것은 광우주의 상승하는

INTRODUCTION

^{106:0.1 (1162.1)} IT IS not enough that the ascending mortal should know something of the relations of Deity to the genesis and manifestations of cosmic reality; he should also comprehend something of the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himself and the numerous levels of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realities, of potential and actual realities. Man's terrestrial orientation, his cosmic insight, and his spiritual directionization are all enhanced by a better comprehension of universe realities and their techniques of interassociatio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106:0.2 (1162.2)} The present grand universe and the emerging master universe are made up of many forms and phases of reality which, in turn, are existent on several levels of functional activity. These manifold existents and latents have been previously suggested in these papers, and they are now grouped for conceptual convenienc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106:0.3 (1162.3)} 1. *Incomplete finites*. This is the

피조물의 현재 상태, 즉 **유란시아** 필사자의 현재 상태다. 이 수준은, 행성 인간으로부터 운명 달성자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피조물 실존을 포함한다. 이 수준은, 초기 물리적 출발점으로부터 빛과 생명에 정착하기 직전까지, 그러나 안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우주들에 해당된다. 이 수준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 활동이 있는 현재의 바깥둘레를 구성한다. 이 수준은, 현재 우주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위해서, **낙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듯한데, 그 시대가 마감되면, 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분명히, 첫 외부 공간 층에서 발전하여 성장하는, 새로운 어떤 질서의 출현을 목격할 것이다.

2. **최대 유한**. 이것은 운명을--곧 현 우주 시대의 범위 내에서 계시된 운명을--달성한 모든 체험하는 피조물의 현재 상태다. 심지어 우주들도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최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상대적 용어다--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최대인가? 그리고 최대에 달한 그것은, 현재 우주 시대에서 보기에 최종적이지만, 다가올 시대들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보나**의 어떤 국면들은 최대 상태인 듯이 보인다.

3. **초월**. 유한한 진보 다음에, 유한을 초월하는 이 수준이 (먼저) 따라온다. 이것은 유한 시초들의 유한_이전 발생과, 뚜렷하게 유한한 모든 종말 또는 운명이 유한_이후에 갖는 중요성을 암시한다. **낙원**과 **하보나** 대부분은 초월 상태에 있는 듯이 보인다.

4. **궁극**. 이 수준은, 총괄우주 중요성이 있고 완성된 총괄우주의 운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낙원**과 **하보나**는 (특히 **아버지** 세계들의 회로는) 여러 면에서 궁극적 중요성을 갖는다.

5. **공동절대**. 이 수준은,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총괄우주를 초월하는 분야에, 체험하는 자들이 입안(立案)됨을 의미한다.

6. **절대**. 이 수준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가 영원부터 현존함을 암시한다. 또한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연합하는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며, 아마 인격의 접촉 잠재력을 통해서일 것이다.

7. **무한**. 이 수준은 실존_이전이며 체험_이후다. 무한의 무조건적 통일은, 모든 시초보다 앞에 있고 모든 운명 이후에 있는 가상(假想)하는 실체다.

실체의 이 수준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그리고 필사자의 관점을 위한, 절충하는 편리한 상징법이다. 필사자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우주 시대들의 입장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첨부하여 제시된 개념들은 완전히 상대적이며, 다음과 같은

present status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the present status of Urantia mortals. This level embraces creature existence from the planetary human up to, but not including, destiny attainers. It pertains to universes from early physical beginnings up to, but not including,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This level constitutes the present periphery of creative activity in time and space. It appears to be moving outward from Paradise, for the closing of the present universe age, which will witness the grand universe attainment of light and life, will also and surely witness the appearance of some new order of developmental growth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06:0.4 (1162.4) 2. *Maximum finites*. This is the present status of all experiential creatures who have attained destiny — destiny as revealed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universe age. Even universes can attain to the maximum of status,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But the term “maximum” is itself a relative term — maximum in relation to what? And that which is maximum, seemingly final, in the present universe age may be no more than a real beginning in terms of the ages to come. Some phases of Havona appear to be on the maximum order.

106:0.5 (1162.5) 3. *Transcendentals*. This superfinite level (antecedently) follows finite progression. It implies the prefinite genesis of finite beginnings and the postfinite significance of all apparent finite endings or destinies. Much of Paradise-Havona appears to be on the transcendental order.

106:0.6 (1162.6) 4. *Ultimates*. This level encompasses that which is of master universe significance and impinges on the destiny level of the completed master universe. Paradise-Havona (especially the circuit of the Father's worlds) is in many respects of ultimate significance.

106:0.7 (1163.1) 5. *Coabsolutes*. This level implies the projection of experientials upon a supermaster universe field of creative expression.

106:0.8 (1163.2) 6. *Absolutes*. This level connotes the eternity presence of the seven existential Absolutes. It may also involve some degree of associative experiential attainment, but if so, we do not understand how, perhaps through the contact potential of personality.

106:0.9 (1163.3) 7. *Infinity*. This level is pre-existential and postexperiential. Unqualified unity of infinity is a hypothetical reality before all beginnings and after all destinies.

106:0.10 (1163.4) These levels of reality are convenient compromise symbolization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and for the mortal perspective. There are a number of other ways of looking at reality from other-than-mortal perspective and from the standpoint of other universe ages. Thu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concepts herewith

여러 가지에 제약을 받고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1. 필사자 언어의 한계.

2. 필사 정신의 한계.

3. 일곱 연방우주의 제한된 발달.

4. **낙원**을 향해서 필사자가 상승하는 데 관계되지 않는, 연방우주의 주요 여섯 목적에 대한 너희의 무지함.

5. 영원성 관점을 부분적으로도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의 무력함.

6. 일곱 연방우주가 진화로 펼쳐지는 현 시대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모든 우주 시대와 관련된 시공우주의 진화와 운명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함.

7. 실존_이전의 존재 또는 체험_이후의 존재들--곧 시작 이전에 있는 것과, 운명 이후에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할 능력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음.

실체의 성장은 이어지는 여러 우주 시대의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중앙우주는 **하보나** 시대에 진화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지만, 연방우주 시대의 현재 시기에는 진화하는 연방우주들과 협조함으로써 야기되는, 어떤 진취적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진화하고 있는 일곱 연방우주가 언젠가는 빛과 생명의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것인데, 현재 우주 시대에 적합한 성장 한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 시대, 즉 첫째 외부공간 층 시대에는, 연방우주들이 현재 시대의 운명 한계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완성됨에 이어서 충만함이 계속 첨가{添加}되고 있다.

이것들은, 사물, 의미, 및 가치의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항상_올라가는 실체 수준에서 이들의 합성에 대하여 통합된 개념을 제시하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시공우주에서 만나는 한계 가운데 일부다.

1. 유한한 기능의 1차 연합

유한한 실체의 1차 국면, 즉 영에서_기원되는 국면은, 피조물 수준에서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우주 수준에서는 완전한 **하보나** 창조로서 직접 표현된다. 심지어 체험하는 **신격도**, **하보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나 유한계의 2차, 진화적인, 시간과_물질에_제약을 받는 국면들은, 오직 성장과 달성하는 결과로서만 시공우주에서 통합된다. 2차 유한자들, 즉 완전하게 되는 유한자는 모두, 결국 1차 완전성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

presented are entirely relative, relative in the sense of being conditioned and limited by:

106:0.11 (1163.5) 1. The limitations of mortal language.

106:0.12 (1163.6) 2. The limitations of the mortal mind.

106:0.13 (1163.7) 3. The limited develop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6:0.14 (1163.8) 4. Your ignorance of the six prime purposes of superuniverse development which do not pertain to the mortal ascent to Paradise.

106:0.15 (1163.9) 5. Your inability to grasp even a partial eternity viewpoint.

106:0.16 (1163.10) 6. The impossibility of depicting cosmic evolution and destiny in relation to all universe ages, not just in regard to the present age of the evolutionary unfolding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6:0.17 (1163.11) 7. The inability of any creature to grasp what is really meant by pre-existentials or by postexperientials — that which lies before beginnings and after destinies.

106:0.18 (1163.12) Reality growth is condition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successive universe ages. The central universe underwent no evolutionary change in the Havona age, but in the present epochs of the superuniverse age it is undergoing certain progressive changes induced by co-ordination with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The seven superuniverses, now evolving, will sometime attain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will attain the growth limit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beyond doubt, the next age, the age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ill release the superuniverses from the destiny limitations of the present age. Repletion is continually being superimposed upon completion.

106:0.19 (1163.13) These are some of the limitations which we encounter in attempting to present a unified concept of the cosmic growth of things, meanings, and values and of their synthesis on ever-ascending levels of reality.

1. PRIMARY ASSOCIATION OF FINITE FUNCTIONALS

106:1.1 (1163.14) The primary or spirit-origin phases of finite reality find immediate expression on creature levels as perfect personalities and on universe levels as the perfect Havona creation. Even experiential Deity is thus expressed in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in Havona. But the secondary, evolutionary, time-and-matter-conditioned phases of the finite become cosmically integrated only as a result of growth and attainment. Eventually all secondary or

겠지만, 그런 운명은 시간 지연에 종속되는데, 중앙 창조에서는 유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연방우주의 구조적 제한에 종속된다. (우리는 3차 유한자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통합하는 기법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이 연방우주의 시간 지연, 즉 완전성의 달성을 막는 이 방해물은, 진화적 성장에 피조물이 참여하도록 만든다. 시간 지연은 이처럼 피조물로 하여금, 바로 그 피조물을 진화시키는 데 **창조주**와 협동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든다.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는 이 시절에, 불완전한 자는 **칠중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와 서로 관련된다.

칠중 하나님은,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낙원 신격**이 시간이라는 방해물을 인식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하는 한 물질 인격체가 **낙원**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공간적으로 아무리 깊은 데서 기원되더라도, **칠중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 불완전하고 허덕이며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으로 이뤄진, 사랑하는 사역과 자비로운 사역에 동참하심이 발견될 것이다.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 사역은, **영원한 아들**을 거쳐서 **낙원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뻗어나가며, **태고 항존자들**을 거쳐서 **지방우주 아버지들**--곧 **창조주 아들들**--에게 이르기까지 밖으로 뻗어나간다.

사람은, 인격을 가졌고 영적 진보로 상승하기 때문에, **칠중 신격**의 인격있는 신성과 영적 신성을 발견하지만; 인격체의 진보와 관계되지 않는 **칠중 하나님**의 다른 국면들이 있다. 이렇게 집단화하는 **신격**의 신성 양상들은, **일곱 으뜸 영**과 **공동 행위자** 사이의 접촉으로 현재 결합돼 있지만,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인격 안에서 영원히 통합될 운명이다. **칠중 신격**의 다른 국면들은 현재의 우주 시대에 다양하게 통합돼 있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지존자** 안에서 통합될 운명이다. 모든 국면에서, **칠중 하나님**은 현재 광우주의 기능적 실체가 상대적으로 통일되는 근원이다.

perfecting finites are to attain a level equal to that of primary perfection, but such destiny is subject to a time delay, a constitutive superuniverse qualification which is not genetically found in the central creation. (We know of the existence of tertiary finites, but the technique of their integration is as yet unrevealed.)

106:1.2 (1164.1) This superuniverse time lag, this obstacle to perfection attainment, provides for creature participation in evolutionary growth. It thus makes it possible for the creature to enter into partnership with the Creator in the evolution of that selfsame creature. And during these times of expanding growth the incomplete is correlated with the perfect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106:1.3 (1164.2) God the Sevenfold signifies the recognition by Paradise Deity of the barriers of time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space. No matter how remote from Paradise, how deep in space, a material survival personality may take origin, God the Sevenfold will be found there present and engaged in the loving and merciful ministr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o such an incomplete, struggling, and evolutionary creature. The divinity ministry of the Sevenfold reaches inward through the Eternal Son to the Paradise Father and outward through the Ancients of Days to the universe Fathers — the Creator Sons.

106:1.4 (1164.3) Man, being personal and ascending by spiritual progression, finds the personal and spiritual divinity of the Sevenfold Deity; but there are other phases of the Sevenfold which are not concerned with the progression of personality. The divinity aspects of this Deity grouping are at present integrated in the liaison between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 Conjoint Actor, but they are destined to be eternally unified in the emerging personality of the Supreme Being. The other phases of the Sevenfold Deity are variously integrated in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all are likewise destined to be unified in the Supreme. The Sevenfold, in all phases, is the source of the relative unity of the functional reality of the present grand universe.

2. 최상의 2차 유한 통합

칠중 하나님이 유한한 진화를 기능적으로 조화시키듯이, **지존하신 분**은 결국 운명의 달성을 종합한다.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진화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신격이다--영 핵심들 주위에 물리적 진화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진화하는, 회전하며 소용돌이치는 영역을, 영 핵심들이 종국에 지배한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인격체, 즉:가장 높은 의미에서 **낙원** 인격체, 우주 의미에서 **창조주** 인격체, 인

2. SECONDARY SUPREME FINITE INTEGRATION

106:2.1 (1164.4) As God the Sevenfold functionally coordinates finite evolution, so does the Supreme Being eventually synthesize destiny attainment. The Supreme Being is the deity culmination of grand universe evolution — physical evolution around a spirit nucleus and eventual dominance of the spirit nucleus over the encircling and whirling domains of physical evolution. And all of this takes

간적 의미에서 필사 인격체, 궁극의 또는 체험으로 종합하는 의미에서 **지존자** 인격체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한다.

지존자 개념은, 영 인격자, 진화적 권능, 및 권능과 인격의 합성--곧 진화적 권능을 영 인격과 통합하고, 영 인격이 그 권능을 지배하는 것--을 구별해서 인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영은 **낙원**으로부터 **하보나**를 거쳐 온다. 에너지와 물질은, 외관상 공간 깊은 데서 진화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과 협력해서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 이를 능력으로 조직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체험적이며; 심지어 **창조주 신**{神}들과 진화하는 피조물도 포함해서, 폭넓은 살아있는 존재를 참여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사항이다. 광우주에서 **창조주** 신들이 권능을 지배하는 것은, 차츰 확대돼서 시_공간 창조계가 진화로 정착되고 안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은 **칠중 하나님**의 체험적 권능이 절정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가 **조을사**를 증여하는 것으로부터, **낙원 아들**들이 생명을 증여하기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을 달성하는 전체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획득한 권능, 입증한 권능, 체험으로 얻은 권능이며; **낙원 신격**들이 가진, 영원성 권능, 헤아릴 수 없는 권능, 실존적 권능과 대조된다.

칠중 하나님이 신으로서 성취하는 것들로부터 발생되는 이 체험적 권능 자체는, 합성함으로써--곧 총합{總合}함으로써--, 진화하는 창조계를 체험으로 숙달한 전능한 권능으로서, 신성의 결합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전능한 권능은, **지존자 하나님**의, **하보나**에 현존하시는 영{靈} 인격과 합동하여, **하보나** 세계들 바깥 지대의 안내 구체{球體}에서 영 인격이 결합되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하여 체험적 **신격**은, 중앙 창조물에 거주하는 영 현존 및 신성한 인격을, 시간과 공간의 산물인 권능에 부여함으로써, 긴 진화적 투쟁을 완결시킨다.

그래서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모든 것 전체를 결국 포함하기에 이르며, 한편 이 특성에 영 인격을 부여한다. 피조물이, 심지어 필사자도, 이 대단한 처리사항에 참여하는 인격체들이므로, 그들도 **지존자**를 알고, 그런 진화하는 **신격**의 참된 자녀로서, 그 **지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획득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와 같은데, **아버지**의 **낙원** 완전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필사자는 언젠가 체험적 **지존자**와 비슷하게 되는 상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가 진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personality: Paradise personality in the highest sense, Creator personality in the universe sense, mortal personality in the human sense, Supreme personality in the culminating or experiential totaling sense.

106:2.2 (1164.5) The concept of the Supreme must provide for the differential recognition of spirit person, evolutionary power, and power-personality synthesis — the unification of evolutionary power with, and its dominance by, spirit personality.

106:2.3 (1164.6) Spirit, in the last analysis, comes from Paradise through Havona. Energy-matter seemingly evolves in the depths of space and is organized as power by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in conjunction with the Creator Sons of God. And all of this is experiential; it is a transaction in time and space involving a wide range of living beings including even Creator divinities and evolutionary creatures. The power mastery of the Creator divinities in the grand universe slowly expands to encompass the evolutionary settling and stabilizing of the time-space creations, and this is the flowering of the experiential power of God the Sevenfold. It encompasses the whole gamut of divinity attainment in time and space from the Adjuster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lif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is is earned power, demonstrated power, experiential power; it stands in contrast to the eternity power, the unfathomable power, the existential power of the Paradise Deities.

106:2.4 (1165.1) This experiential power arising out of the divinity achievements of God the Sevenfold itself manifests the cohesive qualities of divinity by synthesizing — totalizing — as the almighty power of the attained experiential mastery of the evolving creations. And this almighty power in turn finds spirit-personality cohesion on the pilot sphere of the outer belt of Havona worlds in union with the spirit personality of the Havona presence of God the Supreme. Thus does experiential Deity culminate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by investing the power product of time and space with the spirit presence and divine personality resident in the central creation.

106:2.5 (1165.2) Thus does the Supreme Being eventually attain to the embrace of all of everything evolving in time and space while investing these qualities with spirit personality. Since creatures, even mortals, are personality participants in this majestic transaction, so do they certainly attain the capacity to know the Supreme and to perceive the Supreme as true children of such an evolutionary Deity.

106:2.6 (1165.3) Michael of Nebadon is like the Paradise Father because he shares his Paradise perfection; so will evolutionary mortals sometime attain to kinship with the experiential Supreme, for

화로 얻은 완전성을 진정으로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체험에 의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일곱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는 체험이라는 기법으로 감지될 수 없으며; 유한한 피조물 인격은, 기도하고 경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 실체**들만 파악할 수 있다.

지존하신 분의 권능과 인격의 합성이 완성된 가운데, 그렇게 연합될 수 있는 여러 삼극체(三極體)의 모든 절대성이 관련될 것이며, 유한한 모든 인격체는, 진화된 이 당당한 인격체에 체험으로 도달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존재들이, 가정된 일곱째 단계의 영 실존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 단계에서,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인 **지존하신 분** 안에 절대 이하 수준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삼극체들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실현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로 발전하는 이 단계들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 광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조화 있게 안정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3. 초월적 3차 실체 연합

유한절대 설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하며; **최상급 창조주**들이 그 계획을 실존하게 하며; **지존하신 분**은, **최상급 창조주**들이 시간에 맞춰서 창조한 대로, 그리고 **으뜸 설계자**들이 공간에 맞춰서 예측한 대로, 이를 충만하게 완성시킬 것이다.

현 우주 시대 동안에, 총괄우주의 경영상 조정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 우주 시대가 종료될 때, **전능한 지존자**의 출현은, 진화로 생긴 유한자가 체험적 운명의 첫 단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할 것이다. 이 사건은 확실히, 첫 체험적 **삼위일체**--곧 **최상급 창조주**들, **지존하신 분**, 및 **총괄우주의 설계자**들의 합동--의 역할을 완성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주요 창조의 추가적인 진화적 중합을 초래하도록 예정되었다.

낙원 삼위일체는 정말로 무한한 **삼위일체**이며, 어떤 **삼위일체**도 이 원본 **삼위일체**를 포함하지 않고는 무한할 수 없다. 그러나 원본 **삼위일체**는 오로지 절대적 **신격**들의 연합으로 생긴 결말이며; 준절대 존재들은 이런 원초적 연합과 아무 관련 없었다. 나중에 출현하는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피조 인격체들이 기여한 것들 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 삼위일체**에게 확실히 해당되는데, 그 점에서 **으뜸 창조주 아들**들이 그 **최상급 창조주** 구성원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현존하는 것

they will truly share his evolutionary perfection.

106:2.7 (1165.4) God the Supreme is experiential; therefore is he completely experientible. The existential realities of the seven Absolutes are not perceivable by the technique of experience; only th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can be grasped by the personality of the finite creature in the prayer-worship attitude.

106:2.8 (1165.5) Within the completed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there will be associated all of the absoluteness of the several triodities which could be so associated, and this majestic personality of evolution will be experientially attainable and understandable by all finite personalities. When ascenders attain the postulated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they will therein experience the realization of a new meaning-value of the absoluteness and infinity of the triodities as such is revealed on subabsolute levels in the Supreme Being, who is experientible. But the attainment of these stages of maximum development will probably await the co-ordinate settling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in light and life.

3. TRANSCENDENTAL TERTIARY REALITY ASSOCIATION

106:3.1 (1165.6) The absonite architects eventuate the plan; the Supreme Creators bring it into existence; the Supreme Being will consummate its fullness as it was time created by the Supreme Creators, and as it was space forecast by the Master Architects.

106:3.2 (1165.7)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administrative co-ordina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e func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But the appearance of the Almighty Supreme at the termin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will signify that the evolutionary finite has attained the first stage of experiential destiny. This happening will certainly lead to the completed function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 the union of the Supreme Creators, the Supreme Being,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is Trinity is destined to effect the further evolutionary integration of the master creation.

106:3.3 (1166.1) The Paradise Trinity is truly one of infinity, and no Trinity can possibly be infinite that does not include this original Trinity. But the original Trinity is an eventuality of the exclusive association of absolute Deities; subabsolute beings had nothing to do with this primal association. The subsequently appearing and experiential Trinities embrace the contributions of even creature personalities. Certainly this is true of the Trinity Ultimate, wherein the very presence of

은, 이 **삼위일체** 연합 안에 피조물이 실제로 겪는 진정한 체험이 동시에 현존함을 가리킨다.

첫 체험적 **삼위일체**는 궁극적 결말을 집단으로 달성하게 한다. 집단 연합은, 각자의 수용력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초월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심지어 유한 수준을 넘어설 때에도 그렇다. 다가올 시대에,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후에, **완결성취 단체**들은 **궁극 삼위일체**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리고 **지존하신 분** 안에서 권능과 인격이 통합된 대로, 의심할 여지없이 **낙원 신격**들의 목적을 선포할 것이다.

과거 영원과 미래 영원의 거대한 전체 우주 발전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요소들이 커지는 것을 간파했다. **자존자**{自存者}로서, 그가 전체 무한에 충만하다고, 우리는 철학적으로 가정하지만, 어떤 피조물도 그런 가정을 체험으로 납득할 수는 없다. 우주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_조직하는 공간 속으로 인력{引力}과 사랑이 뻗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제1 근원 및 중심**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뚫고 들어가는 인력 작용을 우리는 목격하며, **신격 절대자**가 신성으로 현존하는 가운데 영 피조물이 진화하고 확장하며, 한편 시공우주와 영의 진화는 모두, 유한한 신격 수준에서 정신과 체험으로 인해 **지존하신 분**으로서 통합하고, 초월 수준에서는 **궁극 삼위일체**로서 협조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4. 궁극적 4차 통합

낙원 삼위일체는 궁극적 의미에서 확실히 협조하지만, 이 면에서는 스스로_제한한 절대자로서 활동하며;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는 초월적인 것들을 초월자로서 조화시킨다. 영원한 미래에, 이 체험적 **삼위일체**는 통일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 신격**의 결말에 이르는 현존을 더 활성화할 것이다.

궁극 삼위일체가 총괄 창조물을 조화시키도록 예정돼 있는 반면, **궁극자 하나님**은 전체 총괄 우주를 지휘하는 초월적 권능의_인격화다. **궁극자**의 완성된 결말은, 총괄 창조물의 완성을 암시하며, 이 초월적 **신격**이 온전히 출현함을 의미한다.

궁극자가 온전히 출현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존자**가 지금 **하보나**에 영적으로 몸소 현존하고 있듯이, **궁극자** 또한, 그러나 유한절대 및 인격자를 초월한 의미에서 **하보나**에 현존한다. 그리고 **궁극자**의 **제한된 대리인**들이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

the Master Creator Sons among the Supreme Creator members thereof betokens the concomitant presence of actual and bona fide creature experience *within* this Trinity association.

106:3.4 (1166.2)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provides for group attainment of ultimate eventualities. Group associations are enabled to anticipate, even to transcend, individual capacities; and this is true even beyond the finite level. In the ages to come, after the seven superuniverses have been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Corps of the Finality will doubtless be promulgating the purposes of the Paradise Deities as they are dictated by the Trinity Ultimate, and as they are power-personality unified in the Supreme Being.

106:3.5 (1166.3) Throughout all the gigantic universe developments of past and future eternity, we detect the expansion of the comprehensible elements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 I AM, we philosophically postulate his permeation of total infinity, but no creature is able experientially to encompass such a postulate. As the universes expand, and as gravity and love reach out into time-organizing space, we are able to understand more and mo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observe gravity action penetrating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we detect spirit creatures evolving and expanding within the divinity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while both cosmic and spirit evolution are by mind and experience unifying on finite deity levels as the Supreme Being and are co-ordinating on transcendental levels as the Trinity Ultimate.

4. ULTIMATE QUARTAN INTEGRATION

106:4.1 (1166.4) The Paradise Trinity certainly co-ordinates in the ultimate sense but functions in this respect as a self-qualified absolute; the experiential Trinity Ultimate co-ordinates the transcendental as a transcendental. In the eternal future this experiential Trinity will, through augmenting unity, further activate the eventuating presence of Ultimate Deity.

106:4.2 (1166.5) While the Trinity Ultimate is destined to co-ordinate the master creation, God the Ultimate is the transcendental power-personalization of the directioniza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The completed eventuation of the Ultimate implies the completion of the master creation and connotes the full emergence of this transcendental Deity.

106:4.3 (1166.6) What changes will be inaugurated by the full emergence of the Ultimate we do not know. But as the Supreme is now spiritually and personally present in Havona, so also is the Ultimate there present but in the absonite and superpersonal sense. And you have been

게 알려준 적이 있지만, 그들의 현재 행방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궁극 신격**의 출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영상 영향에 상관없이, 그의 초월 신성{神性}의 인격적 가치를, 이 **신격** 수준의 활성화에 참여한 모든 인격체가 체험할 것이다. 유한자를 초월하는 것은 궁극적 달성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다. **궁극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절대자들과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수용력을 타고났음에도, 절대 이하다.

5. 공동절대, 즉 다섯째_국면의 연합

지존자가 진화로 체험하는 실체의 정점{頂點}인 것처럼, **궁극자**는 초월 실체의 극치다. 그리고 이 두 체험적 **신격**이 실제로 출현하는 것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생길 기초를 놓는다. 이것은 **절대 삼위일체**, 즉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성자**, 이 셋의 합동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잠재성의 **절대 자들**--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를-- 이론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절대 삼위일체**가 마침내 형태화 되는 것은, **하보나**에서 가장 바깥쪽 넷째 공간 층에 이르기까지, 전체 총괄우주의 진화가 완성된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체험적 **신성**의 인격 특성뿐 아니라, 그들이 도달한 **신격**의 통일된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적이지 않은 특성들 전부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이 먼저 시공우주 통합의 인격적 국면을 취급하지만, 그럼에도, **지존하신 분**의 진화와 관련하여 지금 이뤄지고 있는 권능과 인격의 합성이 묘사하다시피, 온갖 우주의 비인격적 양상{樣相}도 마찬가지로 통합 과정을 겪도록 예정돼 있음이 사실이다. **지존자**의 영 인격적 특성은, **전능자**의 권능 특권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지존자** 정신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이 이 두 가치를 보완한다. 또한 한 인격자로서의 **궁극자 하나님**도, **궁극 신격**의 인격적이지 않은 양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고려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수준에서 **신격**과 **무조건 절대자**들은, **우주 절대자**의 현존 앞에서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없다.

삼위일체들은, 그 자체로는 인격적이지 않지만, 인격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though you have not been informed of their present whereabouts or function.

106:4.4 (1167.1) But irre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repercussions attendant upon the emergence of Ultimate Deity, the personal values of his transcendental divinity will be experiential by all personalities who have been participants in the actualization of this Deity level. Transcendence of the finite can lead only to ultimate attainment. God the Ultimate exists in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but is nonetheless subabsolute notwithstanding inherent capacity for functional association with absolutes.

5. COABSOLUTE OR FIFTH-PHASE ASSOCIATION

106:5.1 (1167.2) The Ultimate is the apex of transcendental reality even as the Supreme is the capstone of evolutionary-experiential reality. And the actual emergence of these two experiential Deitie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This is the Trinity Absolute, the un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unrevealed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And this Trinity has theoretical capacity to activate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But the completed formation of this Trinity Absolute could take place only after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from Havona to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106:5.2 (1167.3)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se experiential Trinities are correlative, not only of the personality qualities of experiential Divinity, but also of all the other-than-personal qualities which characterize their attained Deity unity. While this presentation deals primarily with the personal phases of the unification of the cosmos, it is nonetheless true that the impersonal aspec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re likewise destined to undergo unification as is illustrated by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now going on in connection with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spirit-personal qualities of the Supreme are inseparable from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and both are complemented by the unknown potential of Supreme mind. Neither can God the Ultimate as a person be considered apart from the other-than-personal aspects of Ultimate Deity. And on the absolute level the Deity and the Unqualified Absolutes are inseparable and indistinguishable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106:5.3 (1167.4) Trinities are, in and of themselves, not personal, but neither do they contravene

격을 포함하고, 집단적 의미에서 비인격적 기능과 서로 관련시킨다. 그래서 **삼위일체**들은 항상 **신격** 실체인 반면, **인격** 실체는 결코 아니다. 삼자일체의 인격 양상은 그 개별 구성원에 내재하며, 개별 인격자로서는 그 삼자일체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합으로서만 삼자일체이며; 바로 그것이 삼자일체이다. 그러나 삼자일체는 포함된 모든 신격을 항상 내포하며; 삼자일체는 신격 통일이다.

세 **절대자**--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는 삼자일체가 아닌데, 모두가 신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신격화된 존재만 삼자일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연합체는 삼중체 또는 삼극체다.

6. 절대, 즉 여섯째_국면의 종합

총괄우주의 현재 잠재력은 도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_궁극일지도 모르며, 우리는 준절대 시공우주 범위 내에서 절대적 의미와_가치를 온전히 계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모든 표현을 납득하도록 시도하거나, **신격 절대자**의 비인격적인 현재 수준에서 **절대자 하나님**이 체험으로 인격화되는 것을 상상하려고 시도할 때조차,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친다.

지존하신 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 삼위일체**의 형태화와 충분한 기능을 위해서, **궁극자 하나님**의 결말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절대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도, 총괄우주의 공간_무대는 적절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온전히 활동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널리_퍼지는 총괄우주까지도 초월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듯하다.

우리가 무한한_시공우주--곧 총괄우주 바깥에 있는 끝없는 어떤 시공우주--를 가정한다면, 그리고 **절대 삼위일체**의 최종 발전이, 궁극을 초월하는 그런 실천 단계에 바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절대 삼위일체**의 완성된 기능은 무한한 여러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표현되고, 모든 잠재성이 마침내 절대적으로 실현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늘_확장하는 실체의 여러 부분을 종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된 부분들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는 데 비례해서, 절대 상태에 접근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절대 삼위일체**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전체 기능에서 정말로 절대적이다.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또는 달리 한정된 기초 위에서, 절대 기능이 어떻게 총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떤 총체 기능이라도 (잠재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personality. Rather do they encompass it and correlate it, in a collective sense, with impersonal functions. Trinities are, then, always *deity* reality but never *personality* reality. The personality aspects of a trinity are inherent in its individual members, and as individual persons they are *not* that trinity. Only as a collective are they trinity; that is trinity. But always is trinity inclusive of all encompassed deity; trinity is deity unity.

106:5.4 (1167.5) The three Absolutes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 are not trinity, for all are not deity. Only the deified can become trinity; all other associations are triunities or triodities.

6. ABSOLUTE OR SIXTH-PHASE INTEGRATION

106:6.1 (1167.6) The present potential of the master universe is hardly absolute, though it may well be near-ultimate, and we deem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full revelation of absolute meanings within the scope of a subabsolute cosmos. We therefore encounter considerable difficulty in attempting to conceive of a total expression of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the three Absolutes or even in attempting to visualize the experiential person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on the now impersonal level of the Deity Absolute.

106:6.2 (1168.1) The space-stage of the master universe seems to be adequate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for the formation and full function of the Trinity Ultimate, for the eventuation of God the Ultimate, and even for the inception of the Trinity Absolute. But our concepts regarding the full function of this second experiential Trinity seem to imply something beyond even the wide-spreading master universe.

106:6.3 (1168.2) If we assume a cosmos-infinite — some illimitable cosmos on beyond the master universe — and if we conceive that the final developments of the Absolute Trinity will take place out on such a superultimate stage of action, then it becomes possible to conjecture that the completed fun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will achieve final expression in the creations of infinity and will consummate the absolute actualization of *all* potentials. The integration and association of ever-enlarging segments of reality will approach absoluteness of status proportional to the inclusion of all reality within the segments thus associated.

106:6.4 (1168.3) Stated otherwise: The Trinity Absolute, as its name implies, is really absolute in total function. We do not know how an absolute function can achieve total expression on a qualified, limited, or otherwise restricted basis. Hence we must assume that any such totality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 관계에 대해서 매우 확신치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적 견지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것들이 또한 제한되지도 않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실존적 **낙원 삼위일체**가 무한하고, 한편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가 준무한대이지만, **절대 삼위일체**는 분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체험으로 발단되고 구성됐더라도, 그것은 잠재성을 갖는 실존적 **절대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인간 정신이 그런 요원하고 초인적인 개념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은 도저히 유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절대 삼위일체**의 영원한 행위가, 잠재성의 **절대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국 체험적이 된다고 생각해도 됨을 암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는 아니라도, **우주 절대자**에 관해서 이치에 맞는 결론인 듯이 보일 것이며; 최소한 우리는, **우주 절대자**가 정적(靜的)이고 잠재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낱말 전체의 **신격** 의미에서 볼 때, 또한 연합하기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신성 및 인격의 가치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추측하는 사건들이 **신격 절대자**가 인격화하는 것,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인격--곧 체험적 **신격**들 중에서 셋째이자 마지막 존재의 인격--이 완성되는 데 내재돼 있는, 초인격적 가치와 극단인격적 의미가 출현함을 암시한다.

7. 운명의 완결

실체의 무한한 종합에 관한 개념을 조성하는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더러는, 그런 모든 개념이 우주의 발달이 결말에 이른 어떤 것, 즉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종류의 체험적 실현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그리고 양적 무한대가 완결성에서 항상 철저히 실현될 수 있음을 믿기는 어렵다. 체험적 발전 가운데 어떤 부분도 결코 고갈될 수 없는,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이, 세 잠재적 **절대자**에게 항상 남아 있어야 한다. 영원성 자체는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절대 이상{以上}은 아니다.

심지어 최종 종합이라는 시험적 개념조차, 무조건적 영원성의 결실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시간에도 실제로 실현할 수 없다.

낙원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격**들의 자발적 행동이 운명을 확립하며; 운명은 광대한 세 가지 큰 잠재성 안에서 확립되고, 그 절대성은 미래에 발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며; 아마 **우주 운명 완성자**의 행위가 운명을 완성하고, 이 행위는 아마 **절대 삼위일체** 안에서 **지존자** 및 **궁극자**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어떤 체험적 운명이든지, 체험

function will be unconditioned (in potential). And it would also appear that the unconditioned would also be unlimited, at least from a qualitative standpoint, though we are not so sure regarding quantitative relationships.

106:6.5 (1168.4) Of this, however, we are certain: While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is infinite, and while the experiential Trinity Ultimate is subinfinite, the Trinity Absolute is not so easy to classify. Though experiential in genesis and constitution, it definitely impinges upon the existential Absolutes of potentiality.

106:6.6 (1168.5) While it is hardly profitable for the human mind to seek to grasp such faraway and superhuman concepts, we would suggest that the eternity a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may be thought of as culminating in some kind of experientialization of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is would appear to b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Universal Absolute, if not the Unqualified Absolute; at least we know that the Universal Absolute is not only static and potential but also associative in the total Deity sense of those words. But in regard to the conceivable values of divinity and personality, these conjectured happenings imply the person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and the appearance of those superpersonal values and those ultrapersonal meanings inherent in the personality completion of God the Absolute — the third and last of the experiential Deities.

7. FINALITY OF DESTINY

106:7.1 (1168.6) Some of the difficulties in forming concepts of infinite reality integration are inherent in the fact that all such ideas embrace something of the finality of universal development, some kind of an experiential realization of all that could ever be. And it is inconceivable that quantitative infinity could ever be completely realized in finality. Always there must remain unexplored possibilities in the three potential Absolutes which no quantity of experiential development could ever exhaust. Eternity itself, though absolute, is not more than absolute.

106:7.2 (1169.1) Even a tentative concept of final integr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fruitions of unqualified eternity and is, therefore, practically nonrealizable at any conceivable future time.

106:7.3 (1169.2) Destiny is established by the volitional act of the Deities who constitute the Paradise Trinity; destiny is established in the vastness of the three great potentials whose absoluteness encompasses the possibilities of all future development; destiny is probably consummated by the act of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and this act is probably involved with the Supreme

하는 피조물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납득할 수 있지만, 무한한 실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명을 납득할 수는 도저히 없다. 완결된 운명은 실존적이고_체험적인 달성이고, **신격 절대자**를 참여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신격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덕분에, **무조건 절대자**와 영원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체험 가능성을 지닌 이 세 **절대자**는 실존적이고 그 이상인데,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이며, 무공간적이고, 끝이 없으며,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말로 무한하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런 가상의 운명에 관해서 철학적 이론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도달_가능한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신격 절대자**의 현실화는, 실질적으로 실현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며; 그럼에도, 완결되는 그런 결실은 이론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무조건 절대자**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_시공 우주에 연루되는 것은, 끝없이 영원한 미래에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은 그럼에도 타당하다. 필사자, 모론시아 존재, 영, 완결성취자, **초월자**, 및 기타 존재들은, 우주들 자체 및 모든 다른 국면의 실체와 함께, **절대 가치**가 있는 **잠재적 최종 운명**을 확실히 지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나 우주든지 그런 운명의 모든 양상을 영원히 완전하게 달성하게 되리라는 점에는 의혹을 품는다.

아버지를 납득하는 데 너희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너희의 정신은 **아버지_자존자**{自存者}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에 항상 어리둥절할 것인데, 그 무한성의 탐구되지 않은 방대함은, 영원성의 모든 순환 전체에 걸쳐서, 항상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다가가더라도, 존재하는 지 어쩐지 너희가 상상치도 못할 훨씬 많은 부분이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것이 유한한 실존 영역에서 참말인 것처럼, 초월 수준에서도 참말이다. **하나님**을 탐구함에는 끝이 없다!

최종 의미에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 어떤 면에서도 우주 피조물을 낙담시켜서는 안 되며; 너희는 정말로, **칠중존재**, **지존자**, 및 **궁극자**의 **신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수준이 너희에게 갖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히 인식하는 것이, 영원히 실존하는 절대 지위를 갖는 **영원한 아들**에게 그리고 **공동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피조계{被造界}를 괴롭히기는커녕, 끝없는 미래 전반에 걸쳐서, 영원성조차 고갈시키지 않고 중결시키지도 않을 인격을 발전시키고 **신격**과 연합할 가능성을, 상승하는 인격체가 앞으로 소유하게 되리라고, 최상으로 보증할 것임에 틀림 없다.

광우주의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총괄우주 개

and the Ultimate in the Trinity Absolute. Any experiential destiny can be at least partially comprehended by experiencing creatures; but a destiny which impinges on infinite existentials is hardly comprehensible. Finality destiny is an existential-experiential attainment which appears to involve the Deity Absolute. But the Deity Absolute stands in eternity relationship with the Unqualified Absolute by virtue of the Universal Absolute. And these three Absolutes, experiential in possibility, are actually existential and more, being limitless, timeless, spaceless, boundless, and measureless — truly infinite.

106:7.4 (1169.3) The improbability of goal attainment does not, however, prevent philosophical theorizing about such hypothetical destinies. The actu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as an attainable absolute God may be practically impossible of realization; nevertheless, such a finality fruition remains a theoretical possibility. The involvemen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 some inconceivable cosmos-infinite may be measurelessly remote in the futurity of endless eternity, but such a hypothesis is nonetheless valid. Mortals, morontians, spirits, finaliters, Transcendentalers, and others, together with the universes themselves and all other phases of reality, certainly do have a *potentially final destiny that is absolute in value*; but we doubt that any being or universe will ever completely attain all of the aspects of such a destiny.

106:7.5 (1169.4) No matter how much you may grow in Father comprehension, your mind will always be staggered by the unrevealed infinity of the Father-I AM, the unexplored vastness of which will always remain unfathomable and incomprehensible throughout all the cycles of eternity. No matter how much of God you may attain, there will always remain much more of him, the existence of which you will not even suspect. And we believe that this is just as true on transcendental levels as it is in the domains of finite existence. The quest for God is endless!

106:7.6 (1169.5) Such inability to attain God in a final sense should in no manner discourage universe creatures; indeed, you can and do attain Deity levels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which mean to you what the infinite realization of God the Father means to the Eternal Son and to the Conjoint Actor in their absolute status of eternity existence. Far from harassing the creature, the infinity of God should be the supreme assurance that throughout all endless futurity an ascending personality will have before him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Deity association which even eternity will neither exhaust nor terminate.

106:7.7 (1169.6) To finit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the concept of the master universe

넘이 거의 무한한 듯 보이지만, 거기 있는 유한절대 설계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무궁한 **자존자** 안에서 상상하지 못한 미래의 발달에 총괄우주가 관련되는 것을 인지한다. 심지어 공간 자체도, 궁극 상황, 즉 중간_공간에 있는 고요한 지역들의 상대적 절대성 **내에서** 제한하는 조건일 뿐이다.

전체 총괄우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의 영원한 시점에, 의심할 여지없이, 그 전체 역사를 단지 그 시초라고, 즉 미지의 무한성 속에서 더 크고 더 황홀한 변질을 위해서 어떤 유한한 초월적 기초를 창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회상할 것이다. 총괄우주는 그런 미래의 영원한 순간에 여전히 젊은 듯이 보일 것이며; 정말로, 결코 끝_없는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항상 젊은 것이다.

무한한 운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런 운명에 관한 관념을 생각해 보는 것을 조금도 방해치 않으며, 그 세 가지 절대 잠재성이 언제든지 완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전체 실체의 최종 종합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이런 발전적 실현은, **무조건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신격 절대자**들의 완성된 현실화에 입각하며, 세 잠재성의 합동은 **자존자**의 잠복기를 성립시키는데, 이것은 영원성의 정지된 실체, 모든 미래와 그보다 더한 것의 유보된 가능성들이다.

그런 결말은 줄잡아 말하더라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이며; 그럼에도, 세 가지 **삼위일체**의 여러 체제, 인격체, 및 연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_자존자**의 일곱 절대 국면이 다시 연합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우리가 탐지했다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삼중 **삼위일체** 개념과 대면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실존적 상태의 **낙원 삼위일체**, 그리고 체험적 본성과 기원을 갖고 나중에 나타나는 두 **삼위일체**를 포함한다.

8.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본성을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이것은 영원 속에 실현되는 이론적 무한에서 명시되는 바와 같이, 체험적 무한 전체를 실제로 합한 것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 무한자는 실존적 무한자와 일치하게 되며, 이 둘은, 선형적인, 즉 선제하는 **자존자** 안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15개의 삼중체 및 관련된 삼극체에 암시되는 모든 것의 최종 표현이다. 상대적 존재는, 실존적이든지 체험적이든지, 완결성을 납득하기 힘들며; 따라서 완결은 항상 상대성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seems to be well-nigh infinite, but doubtless the absonite architects thereof perceive its relatedness to future and unimagined developments within the unending I AM. Even space itself is but an ultimate condition, a condition of qualification *within* the relative absoluteness of the quiet zones of midspace.

106:7.8 (1170.1) At the inconceivably distant future eternity moment of the final comple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no doubt we will all look back upon its entire history as only the beginning, simply the creation of certain finite and transcendental foundations for even greater and more enthralling metamorphoses in uncharted infinity. At such a future eternity moment the master universe will still seem youthful; indeed, it will be always young in the face of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never-ending eternity.

106:7.9 (1170.2) The improbability of infinite destiny attainment does not in the least prevent the entertainment of ideas about such destiny, and we do not hesitate to say that, if the three absolute potentials could ever become completely actualized, it would be possible to conceive of the final integration of total reality. This developmental realization is predicated on the completed actualization of the Unqualified, Universal, and Deity Absolutes, the three potentialities whose union constitutes the latency of the I AM, the suspended realities of eternity, the abeyant possibilities of all futurity, and more.

106:7.10 (1170.3) Such eventualities are rather remote to say the least; nevertheless, in the mechanisms, personalities, and associations of the three Trinities we believe we detect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he reuniting of the seven absolute phases of the Father-I AM. And this brings us face to face with the concept of the threefold Trinity encompassing the Paradise Trinity of existential status and the two subsequently appearing Trinities of experiential nature and origin.

8. THE TRINITY OF TRINITIES

106:8.1 (1170.4) The nature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difficult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it is the actual summation of the entirety of experiential infinity as such is manifested in a theoretical infinity of eternity realiz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the experiential infinite attains to identity with the existential infinite, and both are as one in the pre-experiential, pre-existential I AM. The Trinity of Trinities is the final expression of all that is implied in the fifteen triunities and associated triodities. Finalities are difficult for relative beings to comprehend, be they existential or experiential; therefore must they always be presented as relativities.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몇몇 국면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들의 상상력을 동요시킬 가능성, 확률, 및 필연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천상(天上)의 철학자들도 예견치 못할 암시적인 것들을 지니는데, 그것이 암시하는 것들이 삼중체들 안에 있고, 삼중체들은 결국 아무리 분석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묘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세 수준의 개념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1. 세 가지 **삼위일체**의 수준.
2. 체험적 **신격**의 수준.
3. **자존자**의 수준.

이것들은 점점 더 통합되는 수준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실제로 첫 수준이고, 한편 둘째와 셋째 수준은 첫 수준의 통합에서_파생된 것들이다.

첫째 수준:이 첫 연합 수준에서는, 세 가지 **삼위일체**가, 뚜렷하지만 완전히 동조된, **신격** 인격체들의 집합으로서 활동한다고 여겨진다.

1. **낙원 삼위일체**, 세 **낙원 신격**--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연합. **낙원 삼위일체**가 --절대 기능, 초월 기능(곧 **궁극 삼위일체**), 유한 기능(곧 **지존 삼위일체**)라는-- 삼중 기능을 내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어느 때든지, 항상, 이들 가운데 어느 분도 되고, 전부도 된다.

2. **궁극 삼위일체**. 이것은 **최상급 창조주들**, **지존자 하나님**, 및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신격 연합이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신성 양상들을 적절히 묘사한 것인 한편, 이 **삼위일체**의 다른 국면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 국면들은 그 신성 양상들과 완전히 조화되는 듯이 보인다.

3. **절대 삼위일체**. 이것은 모든 신성 가치에 관해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우주 운명의 완성자**의 집합이다. 이런 삼중적 집합의 어떤 다른 국면은, 확장하는 시공우주에서 신성이_아닌 다른 가치들과 관계있다. 그러나 체험적 **신격**들의 권능과 인격 양상들이 지금 체험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신성 국면들과 함께 통합되고 있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연합은, 실체의 가능한 한없는 중합을 마련해 준다. 이 집합은, 원인, 중간 상태, 및 결과를 포함하고;개시자, 실행자, 및 완성자를 포함하며;시작, 실존, 및 운명을 포함한다. **아버지 아들**의 협력관계는 **아들_영**이 됐고, 다음에는 **영_지**

106:8.2 (1170.5) The Trinity of Trinities exists in several phases. It contains possibilities, probabilities, and inevitabilities that stagger the imaginations of beings far above the human level. It has implications that are probably unsuspected by the celestial philosophers, for its implications are in the trinities, and the trinities are, in the last analysis, unfathomable.

106:8.3 (1170.6)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the Trinity of Trinities can be portrayed. We elect to present the three-level concept, which is as follows:

106:8.4 (1170.7) 1. The level of the three Trinities.

106:8.5 (1170.8) 2. The level of experiential Deity.

106:8.6 (1170.9) 3. The level of the I AM.

106:8.7 (1170.10) These are levels of increasing unification. Actually the Trinity of Trinities is the first level, while the second and third levels are unification-derivatives of the first.

106:8.8 (1171.1) THE FIRST LEVEL: On this initial level of associ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three Trinities function as perfectly synchronized, though distinct, groupings of Deity personalities.

106:8.9 (1171.2) 1. *The Paradise Trinity*,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 Father, Son, and Spir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Paradise Trinity implies a threefold function — an absolute function, a transcendental function (Trinity of Ultimacy), and a finite function (Trinity of Supremacy). The Paradise Trinity is any and all of these at any and all times.

106:8.10 (1171.3) 2. *The Ultimate Trinity*. This is the deity association of the Supreme Creators, God the Supreme,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While this is an adequate presentation of the divinity aspects of this Trinity,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re are other phases of this Trinity, which, however, appear to be perfectly co-ordinating with the divinity aspects.

106:8.11 (1171.4) 3. *The Absolute Trinity*. This is the grouping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in regard to all divinity values. Certain other phases of this triune grouping have to do with other-than-divinity values in the expanding cosmos. But these are unifying with the divinity phases just as the power and the personality aspects of the experiential Deities are now in process of experiential synthesis.

106:8.12 (1171.5) The association of these three Trinities in the Trinity of Trinities provides for a possible unlimited integration of reality. This grouping contains causes, intermediates, and finals; inceptors, realizers, and consummators; beginnings, existences, and destinies. The Father-

존자가 됐고, 이어서 **지존_궁극자**와 **궁극_절대자**, 심지어 **절대자**와 **아버지_무한자**--곧 실체의 순환의 완성--까지 됐다.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격에 아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른 여러 국면에서,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성 순환 주위에서, 절대적인 자아_실존으로부터, 무한한 자아_게시를 거쳐서, 완결된 자아_실현에 이르기까지--곧 절대 실존자로부터 완결된 체험자들에 이르기까지--실체의 무제한성을 스스로_실현한다.

둘째 수준: 세 가지 **삼위일체**의 협조,는 불가피하게 체험적 **신격**들의 연합된 합동에 연루되는데, 이들은 이 **삼위일체**들과 근본적으로 연합돼 있다. 이 둘째 수준의 본성은 때때로 다음과 같이 제시돼 왔다:

1. **지존자.** 이것은 **낙원 삼위일체**가 **낙원 신격**들의 **창조주 아들**들 및 **창조적 말**들과 체험적으로 접촉을 가지면서 통일된 신격 결과다. **지존자**는, 첫째 단계인 유한한 진화가 완성된 신격 구현[具現]이다.

2. **궁극자.** 이것은 둘째 **삼위일체**가 결말에 이른 통일이 신격에게 나타난 결과, 즉 신성이 초월적으로 그리고 유한절대적으로 의인화[擬人化]된 것이다. **궁극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일정치 않게 고려되는 통일성에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최소한 통제하고 지휘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균형상태 속에서 통합하는 그런 국면의 궁극성을 포함하기에 적합하겠지만, 결말에 이른 **신격**의 계시되지 않은 많은 다른 측면이 있다. **궁극자**와 **지존자**는 서로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또한 **궁극자**는 단순히 **지존자**가 확장된 것도 아니다.

3. **절대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둘째 수준에서, 셋째 구성원의 특성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다. **절대자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 삼위일체**의 최종 기능이 인격에 미치는 결과로서 이 연합에 참여하지만, 그래도 **신격 절대자**는 영원성 상태의 실존적 실체다.

이 셋째 구성원에 관한 개념의 어려움은, 그런 구성원 자격을 전제하는 것은 **절대자**가 오직 하나만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이론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세 **절대자**가 하나로서 **체험**으로 통합된 것을 목격해야 한다. 그리고 무한 속에서 실존적으로 하나의 **절대자**만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누가 이 셋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아주 분명치 않지만, 상상도 못한 접촉과 시공우주 형태화의 어떤 형태로,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로 구성될지 모른다고 종종 가정된다. 분명히,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세 **절대자**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벽한 기능을 도저히 획득할

Son partnership has become Son-Spirit and then Spirit-Supreme and on to Supreme-Ultimate and Ultimate-Absolute, even to Absolute and Father-Infinite — the completion of the cycle of reality. Likewise, in other phases not so immediately concerned with divinity and personality, does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self-realize the limitlessness of reality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from the absoluteness of self-existence, through the endlessness of self-revelation, to the finality of self-realization — from the absolute of existentials to the finality of experientials.

106:8.13 (1171.6) THE SECOND LEVEL: The co-ordination of the three Trinities inevitably involves the associative union of the experiential Deities, who are genetically associated with these Trinities. The nature of this second level has been sometimes presented as:

106:8.14 (1171.7) 1. *The Supreme.* This i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in experiential liaison with the Creator-Creative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is the deity embodiment of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tage of finite evolution.

106:8.15 (1171.8) 2. *The Ultimate.* This i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eventuated unity of the second Trinity, the transcendental and absonite personification of divinity. The Ultimate consists in a variably regarded unity of many qualities, and the human conception thereof would do well to include at least those phases of ultimacy which are control directing, personally experientible, and tensionally unifying, but there are many other unrevealed aspects of the eventuated Deity. While the Ultimate and the Supreme are comparable, they are not identical, neither is the Ultimate merely an amplification of the Supreme.

106:8.16 (1172.1) 3. *The Absolute.* There are many theories held as to the character of the third member o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God the Absolute is undoubtedly involved in this association as the personality consequence of the final fun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yet the Deity Absolute is an existential reality of eternity status.

106:8.17 (1172.2) The concept difficulty regarding this third member is inherent in the fact that the presupposition of such a membership really implies just one Absolute. Theoretically, if such an event could take place, we should witness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s as one. And we are taught that, in infinity and *existentially*, there is one Absolute. While it is least clear as to who this third member can be, it is often postulated that such may consist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in some form of unimagined liaison and cosmic manifestation. Certainly, the Trinity of Trinities could hardly attain to complete function short of

수 없고, 세 **절대자**는 무한한 잠재력을 모두 완전히 실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합될 수 없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셋째 구성원이 **우주 절대자**라고 상상하고, 이 생각이 **우주 절대자**가 정적(靜的)이고 잠재할 뿐만 아니라 연합 성질이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를 최소한으로 왜곡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신격**의 기능과 창조하고 진화하는 측면이 무슨 관계인지, 여전히 감지하지 못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형성하기는 어렵더라도, 한정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둘째 수준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의 합동이, 이 체험적 **신격**들의 조상인, 인격있는 **삼위일체**들의 합동이 낳은 인격적 반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게 된다. 이 세 체험적 **신격**이, 그들의 조상이자 원인이 되고 첫 수준을 이루는 **삼위일체**들이 점점 더 통일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둘째 수준에서 확실히 통합되리라는 견해를 우리는 과감하게 제시해 본다.

첫 수준은 세 가지 **삼위일체**로 이뤄지며; 둘째 수준은 체험으로 진화한, 체험한 결과로 생긴, 그리고 체험적이고 실존적인, **신격** 인격체들의 인격 연합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완벽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개념적 어려움이 있는지 상관없이, 둘째 수준에서 이 세 **신격**의 인격적 연합은, **위엄자**(威嚴者)가 신격화되는 현상에서, 바로 우리의 우주 시대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신격 절대자**가 **궁극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존자** **신**의 최초 창조적 명령에 반응하여 활동하면서, 이 둘째 수준에서 **위엄자**를 현실화했다.

셋째 수준: 둘째 수준에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무조건적 가정(假定)에서는, 전체 무한에 지금 있거나, 전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체가 가진 어떤 국면의 상호 관계든지 다 포함된다. **지존자** **신**은 영(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 능력, 및 체험이다. **궁극자**는 이 모두이고 이보다 훨씬 더하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에 모든 실체가 실현되는 절대 완결성이 포함돼 있다.

지존자, **궁극자**, 및 완벽한 **절대자**, 이 세 분의 합동에는, **자존자**(自存者)가 원래 부분화된 측면, 그리고 **일곱 무한 절대자**의 출현으로 귀결됐던 무한의 그 측면을 기능적으로 다시 결합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주의 철학자들은 비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자주 질문한다: 둘째 수준에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삼자일체 통일을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다면, 그런 신격 통일 결과로 무엇이 발생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존자**를

the full un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s, and the three Absolutes can hardly be unified short of the complete realization of all infinite potentials.

106:8.18 (1172.3) It will probably represent a minimum distortion of truth if the third member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conceived as the Universal Absolute, provided this conception envisions the Universal not only as static and potential but also as associative. But we still do not perceive the relationship to the creative and evolutionary aspects of the function of total Deity.

106:8.19 (1172.4) Though a completed concept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difficult to form, a qualified concept is not so difficult. I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conceived as essentially personal, it becomes quite possible to postulate the un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as the personal repercussion of the union of the personal Trinities who are ancestral to these experiential Deities. We venture the opinion that these three experiential Deities will certainly unify on the second level as the direct consequence of the growing unity of their ancestral and causative Trinities who constitute the first level.

106:8.20 (1172.5) The first level consists of three Trinities; the second level exists as the personality association of experiential-evolved, experiential-eventuated, and experiential-existential Deity personalities. And regardless of any conceptual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mplete Trinity of Trinities, the personal association of these three Deities on the second level has become manifest to our own universe age in the phenomenon of the deitization of Majeston, who was actualized on this second level by the Deity Absolute, acting through the Ultimate and in response to the initial creative mandate of the Supreme Being.

106:8.21 (1172.6) THE THIRD LEVEL: In an unqualified hypothesis o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there is embraced the correlation of every phase of every kind of reality that is, or was, or could be in the entirety of infinity. The Supreme Being is not only spirit but also mind and power and experience. The Ultimate is all this and much more, while, in the conjoined concept of the oneness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there is included the absolute finality of all reality realization.

106:8.22 (1172.7) In the union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complete Absolute, there could occur the functional reassembly of those aspects of infinity which were originally segmentalized by the I AM, and which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Though the universe philosophers deem this to be a most remote probability, still, we often ask this question: I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could ever achieve trinity unity, what then would transpire

체험으로 달성 가능한 존재로 현실화되도록, 그것이 직접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격있는 존재들의 관점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존자**가 이미 **아버지_무한자**로서 체험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비인격적 견제에서, 이 절대 운명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다른 문제이고, 오직 영원성만이 해명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가능성이 적은 이런 결말을, 우리가 인격있는 피조물로서 보건대, 모든 인격체의 최종 운명을, 바로 이 인격체들의 **만유의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한다.

우리가 과거 영원에 계셨던 **자존자**를 철학적으로 상상할 때, 그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영원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존자**가 한 실존자로서 도저히 변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만, 광대한 체험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자존자** 개념은 충분한 자아 실현을 의미한다--**자존자**의 자아 계시 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전체 무한대의 절대 의지 부분, 즉 절대적인 **아버지**의 최종 아들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인격체들이 사는, 무한한 성단(星團)을 포함한다.

9. 실존적인 무한한 통합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우리는 한 없는 실체의 가능한 체험적 통합을 가정하며, 이 모든 것이 아주 먼, 정말로 아득히 먼 영원 속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론을 때때로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모든 과거와 미래의 우주 시대처럼, 바로 이 시대에 실제로 오늘날 무한의 통합이 있으며; 그런 통합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실존한다. 체험하는 실체로서 무한성 통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훗날의 일이지만, 무한성의 무조건적 통일은 우주 실존의 현재 순간을 지배하며, 모든 실체의 다양성을 **절대적 상태인** 실존적 장엄함과 결합시킨다.

영원성이 완성된 완결 수준에서 무한한 통합을 생각하려고 애쓸 때, 유한한 피조물은 자신의 유한한 실존에 내재된 지능의 한계에 직면한다. 시간, 공간, 및 체험은 피조물의 개념에 방해물이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없고 공간에서 분리되고 체험이 제외된다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 실체에 대한 제한된 납득마저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민감성 없이는, 어떤 진화 피조물도, 연속되는 관계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공간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피조물도,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를 헤아릴 수 없다. 체험 없이는 어떤 진화 피조물도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이며; 오직 **일곱 무한 절대자**만이 정말로 체험을 초월하고, 이들조차 어떤 국면에서는 체험할지 모른다.

as a consequence of such deity unity? We do not know, but we are confident that it would lead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the I AM as an experiential attainable. From the standpoint of personal beings it could mean that the unknowable I AM had become experiential as the Father-Infinite. What these absolute destinies might mean from a nonpersonal standpoint is another matter and one which only eternity could possibly clarify. But as we view these remote eventualities as personal creatures, we deduce that the final destiny of all personalities is the final knowing of the Universal Father of these selfsame personalities.

106:8.23 (1173.1) As we philosophically conceive of the I AM in past eternity, he is alone, there is none beside him. Looking forward into future eternity, we do not see that the I AM could possibly change as an existential, but we are inclined to forecast a vast experiential difference. Such a concept of the I AM implies full self-realization — it embraces that limitless galaxy of personalities who have become volitional participants in the self-revelation of the I AM, and who will remain eternally as absolute volitional parts of the totality of infinity, final sons of the absolute Father.

9. EXISTENTIAL INFINITE UNIFICATION

106:9.1 (1173.2) In the concept of the Trinity of Trinities we postulate the possibl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limitless reality, and we sometimes theorize that all this may happen in the utter remoteness of far-distant eternity. But there is nonetheless an actual and present unification of infinity in this very age as in all past and future universe ages; such unification is existential in the Paradise Trinity. Infinity unification as an experiential reality is unthinkable remote, but an unqualified unity of infinity now dominates the present moment of universe existence and unites the divergencies of all reality with an existential majesty that is *absolute*.

106:9.2 (1173.3) When finite creatures attempt to conceive of infinite unification on the finality levels of consummated eternity, they are face to face with intellect limitations inherent in their finite existences. Time, space, and experience constitute barriers to creature concept; and yet, without time, apart from space, and except for experience, no creature could achieve even a limited comprehension of universe reality. Without time sensitivity, no evolutionary creature could possibly perceive the relations of sequence. Without space perception, no creature could fathom the relations of simultaneity. Without experience, no evolutionary creature could even exist; only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really transcend experience, and even these may be

시간, 공간, 및 체험은, 사람이 상대적 실체를 감지하는 데 가장 큰 도구이지만, 그래도 실체를 완벽하게 감지하는 데는 가장 끔찍한 방해물이다. 필사자 및 기타 많은 우주 피조물은, 잠재하는 것들이 공간에서 현실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해 결실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이런 전체 과정은, **낙원**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시_공간 현상이다. 절대 수준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으며; 거기서는 잠재적인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감지될 것이다.

모든 실체를 통합하는 개념은, 이 우주 시대 또는 다른 어느 우주 시대든지 상관없이,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다. 그런 통일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삼중적 **삼위일체**가 명백히 실현되는 정도는, 시공우주에서 실체에 대한 제한조건과 불완전성이 사라지는 데 정비례한다. 그러나 실체의 전체 중합은, 무조건, 영원히, 실존적으로 **낙원 삼위일체** 안에 현존하는데, 그 속에서 바로 이 우주 순간에, 무한한 실체는 절대로 통합돼 있다.

체험하는 자의 관점과 실존적인 자의 관점이 만든 역설(逆說)은 불가피하고, **낙원 삼위일체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각각, 오직 시_공간 상대성으로써만 필사자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영원성 관계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입각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점차 체험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인간 개념--곧 시간 관점--은, 이것이 이미 사실화 됐음을 추가적으로 가정함으로써--곧 영원의 관점으로-- 보충돼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적으로 무한히 통합될 것이며, 체험하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실제로 현존하시고 완벽하게 형태화됐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서로 일으키는 왜곡에 기인한다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유한한 필사자들에게 제안한다:

1. 인간의 제한된 관점, 무조건적 영원성 개념을 파악할 능력이 없음.

2. 불완전한 인간 상태, 체험하는 것들의 절대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3. 인간이 실존하는 목적, 인류는 체험이라는 기법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돼 있고, 따라서 본래부터 구조적으로 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절대자**만이 실존적인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낙원 삼위일체에서 **만유의 아버지**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자존자**이며, **아버지**가 무한하심을 피조물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한계 때문이다. **삼위일체** _이전의, 실존적이고 홀로

experiential in certain phases.

106:9.3 (1173.4) Time, space, and experience are man's greatest aids to relative reality perception and yet his most formidable obstacles to complete reality perception. Mortals and many other universe creatures find it necessary to think of potentials as being actualized in space and evolving to fruition in time, but this entire process is a time-space phenomenon which does not actually take place on Paradise and in eternity. On the absolute level there is neither time nor space; all potentials may be there perceived as actuals.

106:9.4 (1173.5) The concept of the unification of all reality, be it in this or any other universe age, is basically twofold: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Such a unity is in process of experiential realiz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but the degree of the apparent actualization of this threefold Trini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isappearance of the qualifications and imperfections of reality in the cosmos. But total integration of reality is unqualifiedly and eternally and existentially present in the Paradise Trinity, within which, at this very universe moment, infinite reality is absolutely unified.

106:9.5 (1174.1) The paradox created by the experiential and the existential viewpoints is inevitable and is predicated in part on the fact that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Trinity of Trinities are each an eternity relationship which mortals can only perceive as a time-space relativity. The human concept of the gradual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the Trinity of Trinities — the time viewpoint — must b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ostulate that this is already a factualization — the eternity viewpoint. But how can these two viewpoints be reconciled? To finite mortals we suggest the acceptance of the truth that the Paradise Trinity is the existential unification of infinity, and that the inability to detect the actual presence and completed manifestation of the experiential Trinity of Trinities is in part due to reciprocal distortion because of:

106:9.6 (1174.2) 1. The limited human viewpoint, the inability to grasp the concept of unqualified eternity.

106:9.7 (1174.3) 2. The imperfect human status, the remoteness from the absolute level of experientials.

106:9.8 (1174.4) 3. The purpose of human existence, the fact that mankind is designed to evolve by the technique of experience and, therefore, must be inherently and constitutively dependent on experience. Only an Absolute can be both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106:9.9 (1174.5) The Universal Father in the Paradise Trinity is the I AM of the Trinity of Trinities, and the failure to experience the Father as infinite is due to finite limitations. The concept of the *existential*,

사고 도달할 수 없는 **자존자**에 대한 개념과, 체험적인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이후 및 도달 가능한 **자존자**에 대한 개념은 동일한 가설이며; 어떤 실체적 변화도 **무한자** 안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며; 명백한 모든 발전은, 실체를 받아들이고 시공우주의 진가를 알아보는 수용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존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해야 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 *이후에* 존재해야 한다. 이런 관념들이 인간 정신 속에서 영원성과 무한성의 역설을 규명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코 끝나지 않을 이런 문제들에 새롭게 달라붙어 싸우도록, 그런 유한한 지능을 자극해야 하는데, 이 문제들은 **살빙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완결성취자들로서, 그리고 널리 퍼지는 우주들에서 너희의 영원한 인생을 사는 끝없는 미래 전체를 통해서, 너희의 흥미를 계속 둔우게 될 것이다.

모든 우주 인격체는, 영원을 향한 마지막 탐색이 끝없이 무한을 탐험하는 것,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성을 찾아내는 끝없는 탐사 여행임을 곧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서, 모든 피조물 성장이,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비례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에 이르는 영원한 신분증임을 이해하게 된다. **무한자**를 찾는 데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음을 성취하는 데 정비례하고, 이 우주 시대에 **아버지**의 실체들이 신성(神性)의 특성들 내부에 계시된다는 것을, 필사자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피조물들은 거룩하게 사는 체험에서 신성의 이 특성들을 몸소 충당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실제로 실천함을 의미한다.

물질적이고 진화하는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에 입각한 인생이, 인격체의 경기장에서 영 우월성의 달성에 이르도록 직접 인도하며, **아버지** **무한자**에 대한 납득에 그런 피조물이 한 발짝 더 접근하도록 만든다. **아버지**를 닮은 그런 인생은, 진리에 입각하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선함이 지배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간은, 경배함으로써 내적으로 조명되고, 외적으로는 모든 인격체가 우주에서 형제관계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전념하는데, 이 봉사는 자비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인해 동기가 유발돼서 베푸는 것이며, 한편 인생의 이런 모든 특성은, 시공 우주 지혜와 자아를 실현하는 수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항상 올라가는 수준에서, 진화하는 인격 안에서 통합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solitary, pre-Trinity nonattainable I AM and the postulate of the *experiential* post-Trinity of Trinities and attainable I AM are one and the same hypothesis; no actual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Infinite; all apparent developments are due to increased capacities for reality reception and cosmic appreciation.

106:9.10 (1174.6) The I AM, in the final analysis, must exist *before* all existentials and *after* all experientials. While these ideas may not clarify the paradoxes of eternity and infinity in the human mind, they should at least stimulate such finite intellects to grapple anew with these never-ending problems, problems which will continue to intrigue you on Salvington and later as finaliters and on throughout the unending future of your eternal careers in the wide-spreading universes.

106:9.11 (1174.7) Sooner or later all universe personalities begin to realize that the final quest of eternity is the endless exploration of infinity, the never-ending voyage of discovery into the absolutenes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Sooner or later we all become aware that all creature growth is proportional to Father identification. We arrive at the understanding that living the will of God is the eternal passport to the endless possibility of infinity itself. Mortals will sometime realize that success in the quest of the Infinit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chievement of Fatherlikeness, and that in this universe age the realities of the Father are revealed within the qualities of divinity. And these qualities of divinity are personally appropriated by universe creatures in the experience of living divinely, and to live divinely means actually to live the will of God.

106:9.12 (1175.1) To material, evolutionary, finite creatures, a life predicated on the living of the Father's will leads directly to the attainment of spirit supremacy in the personality arena and brings such creatures one step nearer the comprehension of the Father-Infinite. Such a Father life is one predicated on truth, sensitive to beauty, and dominated by goodness. Such a God-knowing person is inwardly illuminated by worship and outwardly devoted to the wholehearted service of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all personalities, a service ministry which is filled with mercy and motivated by love, while all these life qualities are unified in the evolving personality on ever-ascending levels of cosmic wisdom, self-realization, God-finding, and Father worship.

106:9.13 (1175.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107편. 사고 조율사의 기원과 본성

⇨ 106

유란시아 책

10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7편

사고 조율사의 기원과 본성

섹션

소개

1. 사고 조율사의 기원
2. 조율사의 분류
3. 조율사의 디비닝톤 본향
4. 조율사의 본성과 현존
5. 조율사의 정신자세
6. 순수 영으로서의 조율사
7. 조율사와 인격

소개

만유의 아버지는, **낙원**에, 우주들의 바로 한 가운데에 몸소 거하실지라도, 또한 시간세계의 무수한 자녀의 정신 속에서, 공간 세계에 실제로 현존하시는데, 그들에게 **신비 관찰자**로서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행성에 있는 필사자 아들들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동시에, 가장 친밀하게 관련돼 있으시다.

조율사는,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의 혼 속에 육신화한 실재이며; 필사 정신 속에 묶여있는 생애, 사람의 영원한 생애를 틀림없이 약속하는 존재이며; 사람의 완성된 완결성취자 인격의 본질이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에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우주에서 우주로 한 단계씩 상승하는 동안 내내,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성취하는 신성한 기쁨을 점차 숙달해 가면서, 이 본질을 미리 맛보게 된다.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지기를 사람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된 숭고한 운명을 성취하는 데 사람의 체험 동반자가 되려고,

PAPER 107

ORIGIN AND NATURE OF THOUGHT
ADJUSTER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of Thought Adjusters
2. Classification of Adjusters
3. The Divinington Home of Adjusters
4. Nature and Presence of Adjusters
5. Adjuster Mindedness
6. Adjusters as Pure Spirits
7. Adjusters and Personality

INTRODUCTION

107:0.1 (1176.1)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personally resident on Paradise, at the very center of the universes, he is also actually present on the worlds of space in the minds of his countless children of time, for he indwells them as the Mystery Monitors. The eternal Father is at one and the same time farthest removed from, and most intimately associated with, his planetary mortal sons.

107:0.2 (1176.2) The Adjusters are the actuality of the Father's love incarnate in the souls of men; they are the veritable promise of man's eternal career imprisoned within the mortal mind; they are the essence of man's perfected finaliter personality, which he can foretaste in time as he progressively masters the divine technique of achieving the living of the Father's will, step by step, through the ascension of universe upon universe until he actually attains the divine presence of his Paradise Father.

107:0.3 (1176.3) God, having commanded man to be perfect, even as he is perfect, has descended as the Adjuster to become man's experiential partner

이 **조울사**들로서 내려오셨다.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단편은, 사람이 이 신성한 **조울사**와 연합해서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장인데, 심지어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을 찾아내고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왔다.

창조주 아들을 본 필사자는 누구든지 **만유의 아버지**를 본 것이며, 신성한 **조울사**가 내주하는 자는 **낙원 아버지**께서 내주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내주하는 **조울사**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필사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자다. **조울사**의 현존을 의식(意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의 혼과 이 **조울사**의 영원한 융합은, 우주에서 **신격**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하는 실제 체험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낙원**에 도달하고, 거기서 **신격**의 존전(尊前)에서 신성한 은사(恩賜)의 무한한 근원을 경배하려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열망과 끊임없는 갈망을 사람 속에 만드는 이가 **조울사**다. **조울사**는 살아있는 현존인데, 필사 아들과 **낙원 아버지** 사이를 실제로 연결하고, 그가 **아버지**께 점점 가까이 가도록 끌어당긴다. **조울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편성에 비해서 너무 부분적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많은 우주 긴장상태를 우리에게 보충해서 평준화시키는 존재다.

조울사는, 유한한 피조물의 정신 내부에 갇혀 있는 무한한 존재의 절대 본질인데, 그런 필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일시적 합동을 언젠가 완성시킬 수 있고, 끝없는 우주 봉사를 위한 새로운 계층의 존재를 틀림없이 현실화할 수 있다. **조울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사실로 만드는 신성한 우주 실체다. **조울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확실한 시공우주 나침반(羅針盤)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혼에게 언제든지 틀림없이 가리킨다.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세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조울사**가 도착할 때부터 비교적 완숙하게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20세 정도까지, **관찰자**를 때때로 **사고 변경자**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연령까지, 약 40세까지, **신비 관찰자**를 **사고 조울사**라고 부른다. 분별력을 달성한 때부터 육신을 떠나는 때까지, 그들을 종종 **사고 통제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사자 인생의 이 세 국면은, 정신을 복사하고 혼을 진화시키면서 **조울사**가 진보하는 세 단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1. 사고 조울사의 기원

in the achievement of the supernal destiny which has been thus ordained. The fragment of God which indwells the mind of man is the absolute and unqualified assurance that man can find the Universal Father in association with this divine Adjuster, which came forth from God to find man and sonship him even in the days of the flesh.

107:0.4 (1176.4) Any mortal who has seen a Creator Son has seen the Universal Father, and he who is indwelt by a divine Adjuster is indwelt by the Paradise Father. Every mortal who i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following the leading of his indwelling Adjuster is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Consciousness of Adjuster presence is consciousness of God's presence. Eternal fusion of the Adjuster with the evolutionary soul of man is the factual experience of eternal union with God as a universe associate of Deity.

107:0.5 (1176.5) It is the Adjuster who creates within man that unquenchable yearning and incessant longing to be like God, to attain Paradise, and there before the actual person of Deity to worship the infinite source of the divine gift. The Adjuster is the living presence which actually links the mortal son with his Paradise Father and draws him nearer and nearer to the Father. The Adjuster is our compensatory equalization of the enormous universe tension which is created by the distance of man's removal from God and by the degree of his partiality in contrast with the universality of the eternal Father.

107:0.6 (1176.6) The Adjuster is an absolute essence of an infinite being imprisoned within the mind of a finite creature which, depending on the choosing of such a mortal, can eventually consummate this temporary union of God and man and veritably actualize a new order of being for unending universe service. The Adjuster is the divine universe reality which factualizes the truth that God is man's Father. The Adjuster is man's infallible cosmic compass, always and unerringly pointing the soul Godward.

107:0.7 (1177.1) On the evolutionary worlds, will creatures traverse three general developmental stages of being: From the arrival of the Adjuster to comparative full growth, about twenty years of age on Urantia, the Monitors are sometimes designated Thought Changers. From this time to the attainment of the age of discretion, about forty years, the Mystery Monitors are called Thought Adjusters. From the attainment of discretion to deliverance from the flesh, they are often referred to as Thought Controllers. These three phases of mortal lif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three stages of Adjuster progress in mind duplication and soul evolution.

1. ORIGIN OF THOUGHT ADJUSTERS

사고 조율사는 원본 **신격**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서 권위 있는 설명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살빙톤**의 전승과, **우버사**에서 믿고 있는 것을 전할뿐이며;이 **신비 관찰자**들, 그리고 광우주 전반에 걸친 그들의 연합된 실재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사고 조율사가 증여되는 양식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도,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없으며;**제1 근원 및 중심**이신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아왔다고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며;무한한 **하나님**의 실제 현존을 구성하는 단편화(斷片化)된 실체다. **조율사**들은 계시되지 않은 많은 동역자와 함께, 혼합되거나 희석되지 않은 신성{神性}, 즉 **신격**의 무조건적이고 감소되지 않은 부분이며;**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성을 벗어나고 그들이 실존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또한 그들의 숫자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인간 정신에 내주하기 위하여 시간세계의 행성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경력에 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그들의 삼중적 운명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완료를 포함하는 그들의 시공우주 진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한데, 삼중적 운명은:어떤 필사 상승자와 융합함으로 인격을 달성하는 것,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격을 획득하는 것, 또는 **사고 조율사**들이 부여된 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가 확장됨에 따라서,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율사**들이 끊임없이 개별화 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 **조율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잘못된 가능성도 똑같이 있을지 모르며;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성을 가진 이 단편들이 실존적으로 무한할 수 있다.

사고 조율사가 기원된 기법은, **만유의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기능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동료 절대자들 중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단편들 산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율사**는 다만, 영원토록 신성한 선물이며;**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같다.

융합하는 피조물과 갖는 관계에서, 그들은 숭고한 사랑과 영적 사역을 드러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선언을 충분히 확증한다. 그러나 이 초월적 사역 외에도,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계시된 적이 없는 많은 것이 일어난다. 또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시간세계의 피조물 인격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자신을 내주셨을 때, 정말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또한

107:1.1 (1177.2) Since Thought Adjusters are of the essence of original Deity, no one may presume to discourse authoritatively upon their nature and origin; I can only impart the traditions of Salvington and the beliefs of Uversa; I can only explain how we regard these Mystery Monitor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107:1.2 (1177.3) Though there are diverse opinions regarding the mode of the bestowal of Thought Adjusters, there exist no such differences concerning their origin; all are agreed that they proceed direct from the Universal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y are not created beings; they are fragmentized entities constituting the factual presence of the infinite God. Together with their many unrevealed associates, the Adjusters are undiluted and unmixed divinity, unqualified and unattenuated parts of Deity; they are of God, and as far as we are able to discern, they are God.

107:1.3 (1177.4) As to the time of their beginning separate existences apart from the absolutenes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do not know; neither do we know their number. We know very little concerning their careers until they arrive on the planets of time to indwell human minds, but from that time on we are more or less familiar with their cosmic progressions up to and including the consummation of their triune destinies: attainment of personality by fusion with some mortal ascender, attainment of personality by fiat of the Universal Father, or liberation from the known assignments of Thought Adjusters.

107:1.4 (1177.5) Although we do not know, we presume that Adjusters are being constantly individualized as the universe enlarges, and as the candidates for Adjuster fusion increase in numbers. But it may be equally possible that we are in error in attempting to assign a numerical magnitude to the Adjusters; like God himself, these fragments of his unfathomable nature may be existentially infinite.

107:1.5 (1177.6) The technique of the origin of the Thought Adjusters is one of the unrevealed functions of the Universal Father.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none of the other absolute associat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ve aught to do with the production of Father fragments. Adjusters are simply and eternally the divine gifts; they are of God and from God, and they are like God.

107:1.6 (1177.7) In their relationship to fusion creatures they reveal a supernal love and spiritual ministry that is profoundly confirmative of the declaration that God is spirit. But there is much that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s transcendent ministry that has never been revealed to Urantia mortals. Neither do we fully understand just what really transpires when the Universal Father gives of

낙원 완결성취자들의 상승하는 진보 과정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숭고한 동역관계에 내재적일 충분한 가능성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 단편들은, 절대적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피조물에게 절대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인격이전 **신격**을 단편화시키심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영_융합 계열에 속하는 생존하는 필사자의 진화하는 혼과 실제로 융합하도록, 그리고 내주하도록, 자신의 선{先}정신 영 부분들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그렇게 단편화될 수 없으며; **원본 아들**의 영은 발산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격자를 갖는다. **아들**과_융합된 피조물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주 아들**들이 개별화하여 증여하신 것과 결합된다.

2. 조율사의 분류

조율사는, 체험 없는 실재로서 개별화되며, 모두 해방되거나, 융합하거나, 아니면 **인격화된 관찰자**가 되게 돼있다. 우리는 일곱 계층의 **사조 조율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분류를 다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상이한 계층을 종종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무체험 조율사**, 진화하는 영원한 생존 후보자의 정신 속에서 첫 임무에 임하는 자. **신비 관찰자**들은 신성한 본성에서 영원히 동일하다. 그들은 또한 **디비닝톤**에서 처음 나올 때 체험적 본성에서도 역시 동일하며; 그 후에 이뤄지는 체험의 차이는, 우주에서 사역하는 중에 실제로 체험한 것들의 결과다.

2. **진보된 조율사**,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정제성, 그리고 **제3 근원 및 중심**이 지방우주에서 현현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이 둘 사이에 최종 융합이 일어나는 여러 세계에서, 의지 피조물과 함께 한 번 이상의 생애 동안 봉사한 자.

3. **최상 조율사**,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한때의 모험에 봉사한 적이 있지만, 그 인간 상대자가 어떤 이유로 영원한 생존을 획득하지 못한 **관찰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진화 세계에서 다른 필사자의 다른 모험에 배정된 **관찰자**. 최상 **조율사**는, 무체험 **관찰자**보다 더 신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많은 체험을 했으며, 덜 체험한 **조율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 정신 속에서 할 수 있다.

4. **사라진 조율사**, **신비 관찰자**의 경력을 추적하려는 우리의 수고가 여기서 중단된다.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넷째 단계의 봉사가 있다. **멜기세**

himself to be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a creature of time. Nor has the ascending progression of the Paradise finalizers as yet disclosed the full possibilities inherent in this supernal partnership of man and God. In the last analysis, the Father fragments must be the gift of the absolute God to those creatures whose destiny encompasses the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God as absolute.

107:1.7 (1178.1) As the Universal Father fragmentizes his prepersonal Deity, so does the Infinite Spirit individuate portions of his premind spirit to indwell and actually to fuse with the evolutionary souls of the surviving mortals of the spirit-fusion series. But the nature of the Eternal Son is not thus fragmentable; the spirit of the Original Son is either diffuse or discretely personal. Son-fused creatures are united with individualized bestowals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s of the Eternal Son.

2. CLASSIFICATION OF ADJUSTERS

107:2.1 (1178.2) Adjusters are individuated as virgin entities, and all are destined to become either liberated, fused, or Personalized Monitors.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seven orders of Thought Adjusters, although we do not altogether comprehend these divisions. We often refer to the different orders as follows:

107:2.2 (1178.3) 1. *Virgin Adjusters*, those serving on their initial assignment in the minds of evolutionary candidates for eternal survival. Mystery Monitors are eternally uniform in divine nature. They are also uniform in experiential nature as they first go out from Divinington; subsequent experiential differentiation is the result of actual experience in universe ministry.

107:2.3 (1178.4) 2. *Advanced Adjusters*, those who have served one or more seasons with will creatures on worlds where the final fusion takes place between the identity of the creature of time and an individualized portion of the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107:2.4 (1178.5) 3. *Supreme Adjusters*, those Monitors that have served in the adventure of time on the evolutionary worlds, but whose human partners for some reason declined eternal survival, and those that have been subsequently assigned to other adventures in other mortals on other evolving worlds. A supreme Adjuster, though no more divine than a virgin Monitor, has had more experience, can do things in the human mind which a less experienced Adjuster could not do.

107:2.5 (1178.6) 4. *Vanished Adjusters*. Here occurs a break in our efforts to follow the careers of the Mystery Monitors. There is a fourth stage of service about which we are not sure. The

덱들은, 이 넷째 단계의 **조율사**가, 온갖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견 임무에 임한다고 가르친다. **단독 사자**들은,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참신한 교체 기간을 누리면서, **제1 근원 및 중심**과 하나가 된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율사**는, 편재하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총괄우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5. **해방된 조율사**, 진화하는 구체의 필사자를 위해서, 시간세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신비 관찰자**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6. **융합된 조율사** --완결성취자-- 연방우주들에서 상승하는 피조물과 하나 된 자, 즉 시간세계에서 상승하고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 속하는 자의 영원한 동반자. **사교 조율사**들은 대개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합하고, 생존하는 그런 필사자와 함께 **어센딩톤**에서 출입이 등록되며; 상승하는 존재의 행로를 따른다. 진화하는 상승 혼과 융합함에 따라서, 그 **조율사**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 수준으로부터, 상승하는 인격체와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유한한 체험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인다. 융합한 **조율사**는, 실존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모든 특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생존하는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다.

7. **인격화된 조율사**, 육신화 한 **낙원 아들**과 함께 봉사한 자, 그리고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동안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지만,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기간에 그 상대자가 생존하기를 거부한, 많은 **조율사**. 그런 **조율사**들은 배정된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의 권고에 따라서 인격화된다고 우리가 믿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 단편들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주 임무에 따라서, 개별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데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할 필사 후보자의 인종 계통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3. 조율사의 디비닝톤 본향

신비 관찰자들의 파송, 관리, 지휘,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 전체의 근무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관련된 모든 우주 활동은, **디비닝톤**이라는 신성시되는 구체에 중심을 두는 듯하다. 내가 아는 한, **조율사**들 및 **아버지**의 다른 실재들 외에는 아무도 그 구체에 가 본 적이 없다. 계시되지 않은 무수한 인격이전 실재가 **조율사**들과 함께 **디비닝톤**을 고향 구체로 삼는 것 같다. 이 동료 실재들이 **신비 관찰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

Melchizedeks teach that the fourth-stage Adjusters are on detached assignments, roam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olitary Messengers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they are at one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enjoying a period of refreshing association with the Father himself. And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an Adjuster could be roaming the master universe simultaneously with being at one with the omnipresent Father.

107:2.6 (1178.7) 5. *Liberated Adjusters*, those Mystery Monitors that have been eternally liberated from the service of time for the mortals of the evolving spheres. What functions may be theirs, we do not know.

107:2.7 (1179.1) 6. *Fused Adjusters* — finaliters — those who have become one with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superuniverses, the eternity partners of the time ascenders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Thought Adjusters ordinarily become fused with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nd with such surviving mortals they are registered in and out of Ascendington; they follow the course of ascendant beings. Upon fusion with the ascending evolutionary soul, it appears that the Adjuster translates from the absolute existential level of the universe to the finite experiential level of functional association with an ascending personality. While retaining all of the character of the existential divine nature, a fused Adjuster becomes indissolubly linked with the ascending career of a surviving mortal.

107:2.8 (1179.2) 7. *Personalized Adjusters*, those who have served with the incarnated Paradise Sons, together with many who have achieved unusual distinction during the mortal indwelling, but whose subjects rejected survival. We have reasons for believing that such Adjusters are personaliz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their assignment.

107:2.9 (1179.3)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these mysterious God fragment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universe assignment, by the measure of success in the indwelling of an individual mortal, or even by the racial ancestry of the mortal candidate for fusion.

3. THE DIVININGTON HOME OF ADJUSTERS

107:3.1 (1179.4) All universe activities related to the dispatch, management, direction, and return of the Mystery Monitors from service in all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em to be centered on the sacred sphere of Divinington. As far as I know, none but Adjusters and other entities of the Father have been on that sphere. It seems likely that numerous unrevealed prepersonal entities share Divinington as a home sphere with the Adjusters. We conjecture that these fellow entities may in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모른다.

사고 조율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본향으로 보이는 그 영역, 즉 **디비닝톤**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이런 체험의 일환으로, 이 비밀한 구체에 위치한다고 알려진 **아버지**의 신성의 특화된 현시뿐 아니라, **아버지**의 **낙원** 인격과도 실제 접촉이 있다.

우리가 **낙원**에 속한 비밀한 일곱 구체 전부에 대해서 무언가 알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디비닝톤**에 대해서 더 적게 안다. 높은 영적 계층에 속한 존재들은, 신에게서 오직 세 가지 금지명령을 받는데, 다음과 같다:

1. 자기 선배 및 상관의 체험과 재능에 항상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2. 자기 후배 및 부하의 한계와 체험부족을 항상 배려해야 한다.

3. **디비닝톤**에 상륙하려고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가 **디비닝톤**에 가야할 필요가 전혀 없으리라는 것을 종종 회고해 본 적이 있으며; 아마 나는 **인격화된 조율사**들 외에는 어떤 거주하는 존재도 볼 수 없을 것인데, 나는 그들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매우 확신하는데, **디비닝톤**에는 내게 유익하거나 실제적인 가치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내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됐을 리 없다.

우리는 **디비닝톤**에서 **조율사**의 본성이나 기원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배울 수 없으므로, 수많은 다른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며, 유익한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축적된 자료를 모으고, 연결하고, 또한 서로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사고 조율사들이 나타낸 용기와 지혜가, 그들이 광범한 분야와 범위에 걸쳐서 훈련 받아왔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디비닝톤**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이 훈련을 제공했음에 틀림없다. 독특한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디비닝톤**에 속한 **조율사** 훈련 학교 요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에 있는 이 감독하는 단체들을, 자기 우주 영역에 있는 종족과 민족들에게 자신의 칠중{七重} 증여를 완성한, **미가엘** 계층 가운데 첫 **낙원 아들**의 현재 **인격화된 조율사**가 관장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인격화되지 않은 **조율사**에 대해서 정말로 거의 알지 못하며; 다만 인격화된 계층과 만

some manner be associated with the present and future ministry of the Mystery Monitors. But we really do not know.

107:3.2 (1179.5) When Thought Adjusters return to the Father, they go back to the realm of supposed origin, Divinington; and probably as a part of this experience, there is actual contact with the Father's Paradise personality as well as with the specialized manifestation of the Father's divinity which is reported to be situated on this secret sphere.

107:3.3 (1179.6) Although we know something of all the seven secret spheres of Paradise, we know less of Divinington than of the others. Beings of high spiritual orders receive only three divine injunctions, and they are:

107:3.4 (1179.7) 1. Always to show adequate respect for the experience and endowments of their seniors and superiors.

107:3.5 (1179.8) 2. Always to be considerate of the limitations and inexperience of their juniors and subordinates.

107:3.6 (1179.9) 3. Never to attempt a landing on the shores of Divinington.

107:3.7 (1179.10) I have often reflected that it would be quite useless for me to go to Divinington; I probably should be unable to see any resident beings except such as the Personalized Adjusters, and I have seen them elsewhere. I am very sure there is nothing on Divinington of real value or profit to me, nothing essential to my growth and development, or I should not have been forbidden to go there.

107:3.8 (1180.1) Since we can learn little or nothing of the nature and origin of Adjusters from Divinington, we are compelled to gather information from a thousand and one different 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assemble, associate, and correlate this accumulated data in order that such knowledge may be informative.

107:3.9 (1180.2) The valor and wisdom exhibited by Thought Adjusters suggest that they have undergone a training of tremendous scope and range. Since they are not personalities, this training must be imparted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Divinington. The unique Personalized Adjusters no doubt constitute the personnel of the Adjuster training schools of Divinington. And we do know that this central and supervising corps is presided over by the now Personalized Adjuster of the first Paradise Son of the Michael order to complete his sevenfold bestowal upon the races and peoples of his universe realms.

107:3.10 (1180.3) We really know very little about the nonpersonalized Adjusters; we only contact and

나고 대화할 뿐이다. 이들은 **디비닝톤**에서 이름을 수여 받았고, 숫자로가 아니라 항상 이름으로 알려진다.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영구적으로 **디비닝톤**에 주소가 정해지며; 신성시되는 그 구체가 그들의 고향이다. 그들은 오직 **만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 그들 중에서 거의 아무도 지방우주 영토들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많은 숫자가 중앙 우주에 현존한다.

4. 조율사의 본성과 현존

사고 조율사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기원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낙원 아버지**의, 보편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절대 본질에 속하는 단편 내부에 포함될 수 있는, **신격**의 모든 잠재 속성의 본질을 그렇게 순수한 신성(神性)이 포용하고 있음이 매우 유력하다.

조율사의 실제 근원은 반드시 무한해야 하며, 발전하는 필사자의 불멸하는 혼과 융합하기 전에도, **조율사**의 실체는 절대성에 가까움이 틀림없다. **조율사**는 보편적 의미에서, 즉 **신격**의 의미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으나, 단편화된 본성의 잠재성에서는 아마 진정한 절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은 보편성에 대해서는 제한되지만, 본성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으며; 폭넓음에서는 제한되지만, 의미, 가치, 및 사실 등의 집약됨에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성한 선물을 **아버지**의 제한된 절대 단편이라고 칭한다.

어떤 **조율사**도 **낙원 아버지**께 불충한 적이 없었으며, 인격자를 가진 피조물 가운데서 낮은 계층의 존재는 불충한 동료와 때로 다툴 수 있지만, **조율사**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피조물을 보살피고 우주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숭고한 분야에서, 그들은 최상이고 실패하지 않는다.

오직 **인격화된 조율사**만이, 인격화되지 않은 **조율사**를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단독 사자** 계층은, **영감된 삼위일체의 영**들과 함께, **조율사**의 출현을 영적 반응 현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스라빔도, 때로는 사람의 물질 정신 속에 **관찰자**의 현존이 함께 연합하는 듯한 영 광채를 식별하기도 하지만; 인격화됐다면 모를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조율사**들의 출현을 실제로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진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융합된 인격과 합동하는 동안에 감지될 수 있다. **조율사**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고차원적이고 순전히 신성한 기원과 본성을 지녔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신성한 현존에 수반하는, 독자적인 빛, 즉 영 광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조율사**들과 관련돼 왔다.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낙원** 광채가

communicate with the personalized orders. These are christened on Divinington and are always known by name and not by number. The Personalized Adjusters are permanently domiciled on Divinington; that sacred sphere is their home. They go out from that abode only by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Very few are found in the domains of the local universes, but larger numbers are present in the central universe.

4. NATURE AND PRESENCE OF ADJUSTERS

107:4.1 (1180.4) To say that a Thought Adjuster is divine is merely to recognize the nature of origin. It is highly probable that such purity of divinity embraces the essence of the potential of all attributes of Deity which can be contained within such a fragment of the absolute essence of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eternal and infinite Paradise Father.

107:4.2 (1180.5) The actual source of the Adjuster must be infinite, and before fusion with the immortal soul of an evolving mortal, the reality of the Adjuster must border on absoluteness. Adjusters are not absolutes in the universal sense, in the Deity sense, but they are probably true absolutes within the potentialities of their fragmented nature. They are qualified as to universality but not as to nature; in extensiveness they are limited, but in intensiveness of meaning, value, and fact *they are absolute*. For this reason we sometimes denominate the divine gifts as the qualified absolute fragments of the Father.

107:4.3 (1180.6) No Adjuster has ever been disloyal to the Paradise Father; the lower orders of personal creatures may sometimes have to contend with disloyal fellows, but never the Adjusters; they are supreme and infallible in their supernal sphere of creature ministry and universe function.

107:4.4 (1180.7) Nonpersonalized Adjusters are visible only to Personalized Adjusters. My order, the Solitary Messengers, together with Inspired Trinity Spirits, can detect the presence of Adjusters by means of spiritual reactive phenomena; and even seraphim can sometimes discern the spirit luminosity of supposed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f Monitors in the material minds of men; but none of us are able actually to discern the real presence of Adjusters, not unless they have been personalized, albeit their natures are perceivable in union with the fused personalities of the ascending mortal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The universal invisibility of the Adjusters is strongly suggestive of their high and exclusive divine origin and nature.

107:4.5 (1181.1) There is a characteristic light, a spirit luminosity, which accompanies this divine presence, and which has become generally

“안내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우버사**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이 **유란시아**에서는 때때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언급돼 왔다.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한 모든 존재는, **인격화된 사고 조율사**들을 볼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조율사**든지,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 실체, 영, 인격체, 및 영 형태화 역시, **낙원의 신격**들 안에서 지원되고 광우주의 주요 정부를 주관하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에게 언제나 식별될 수 있다.

조율사의 내주하심이 정말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너희는 깨달을 수 있는가? 너희의 유한한 필사 본성에 내주하고 그와 융합하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격**의 절대적 단편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정말로 통찰할 수 있는가? 필사적 사람이, 전체 시공우주의 존재 **근원**의 실체 단편과 융합할 때, 전례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업관계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영원속에서, 사람은 객관적 **신격**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주관적 단편의 끝없는 잠재성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율사**는 필사 인격체에게 **하나님**의 불가사의함을 항상 드러낼 것이며, 이 숭고한 계시{啓示}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는데, **조율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필사적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5. 조율사의 정신자세

진화하는 필사자는, 정신을 영과 물질 사이의 시공우주 중재자로 간주하기 쉬운데,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식별할 수 있다시피 정신의 근본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조율사**가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조율사**가 인격이전{人格以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영이 갈라지기 이전인 실체의 절대 수준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영이 구분되기 전의 일원론 수준에서는 정신의 중재 작용이 있을 수 없는데, 중재를 필요로 하는 어떤 갈라짐도 없기 때문이다.

조율사는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정신과 어울리는 자아의 능력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즉 첫째 또는 무체함 집단보다 높은, 온갖 형태의 **관찰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무제한의 역량을 갖는다. 그들의 상호간 대화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지적으로 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격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

associated with Thought Adjusters.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is Paradise luminosity is widely known as the “pilot light”; on Uversa it is called the “light of life.” On Urantia this phenomenon has sometimes been referred to as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107:4.6 (1181.2) To all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the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visible. Adjusters of all stages, together with all other beings, entities, spirits, personalities, and spirit manifestations, are always discernible by thos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who originate in the Paradise Deities, and who preside over the major governments of the grand universe.

107:4.7 (1181.3) Can you really realize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Adjuster's indwelling? Do you really fathom what it means to have an absolute fragment of the absolute and infinite Deity, the Universal Father, indwelling and fusing with your finite mortal natures? When mortal man fuses with an actual fragment of the existential Cause of the total cosmos, no limit can ever be placed upon the destiny of such an unprecedented and unimaginable partnership. In eternity, man will be discovering not only the infinity of the objective Deity but also the unending potentiality of the subjective fragment of this same God. Always will the Adjuster be revealing to the mortal personality the wonder of God, and never can this supernal revelation come to an end, for the Adjuster is of God and as God to mortal man.

5. ADJUSTER MINDEDNESS

107:5.1 (1181.4) Evolutionary mortals are prone to look upon mind as a cosmic mediation between spirit and matter, for that is indeed the principal ministry of mind as discernible by you. Hence it is quite difficult for humans to perceive that Thought Adjusters have minds, for Adjusters are fragmentations of God on an absolute level of reality which is not only prepersonal but also prior to all energy and spirit divergence. On a monistic level antecedent to energy and spirit differentiation there could be no mediating function of mind, for there are no divergencies to be mediated.

107:5.2 (1181.5) Since Adjusters can plan, work, and love, they must have powers of selfhood which are commensurate with mind. They are possessed of unlimited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at is, all forms of Monitors above the first or virgin groups. As to the nature and purport of their intercommunications, we can reveal very little, for we do not know. And we further know that they must be minded in some manner else they could never be personalized.

고 있다.

사고 조율사의 정신자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정신자세**와 비슷하다--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정신들에게 조상이 되는 무엇이다.

조율사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정신 유형은, 아마도 **제1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마찬가지로 기원되는, 인격이전 실재의 수많은 다른 계층의 정신 재능과 비슷함에 틀림없다. 이 계층들 가운데 다수가 **유란시아**에는 계시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정신이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원본 **신격**이 개별화된 이 존재들에게는, 필사적이지 않은 존재의 수많은 진화 유형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신격** 단편들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온, 제한된 숫자의 비진화{非進化} 존재들과 통합하게 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생존하는 인간의 진화하는 불멸의 모론시아 혼과 **사고 조율사**가 융합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 진보의 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조율사**의 정신은 피조물의 정신으로부터 따로 존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상승 체험을 거친 완결성취자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이 여섯째 단계의 영들은, 어떤 정신 요소를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이 정신 요소는 그런 상승하는 인격체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국면 사이의 연락관으로서 전에 작용했던, 필사자의 정신과 **조율사**의 정신의 어떤 국면들이 합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험적 정신의 질{質}은 아마, “최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후에는 진화하는 **신격**--곧 **지존하신 분**--의 체험 재능을 증대시킬 것이다.

6. 순수 영으로서의 조율사

피조물의 체험 속에서 **사고 조율사**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은 영 영향력이 있고 피조물을 인도하는 것을 드러낸다. **조율사**는 정말로 어떤 영, 순수한 영이지만, 영 이상{以上}의 존재다. 우리는 **신비 관찰자**들을 한 번도 만족스럽게 구분해 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점이다.

조율사는 사람의 영원성을 가능하게 하며; 사람은 **조율사**가 인격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의 개별 **조율사**는, 너희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구화시키기를 기대하며, 너희를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 **조율사**는, 영들의 **아버지**의 이름답고 자기를 증여하는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고 신성하게 너희를 사랑하며; 영 희망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 안에 갇혀있는 포로다. 그들은 너희의 필사 정신이 신성{神性}을 달성해서 그들의 고독함이 끝나기를, 물질의 상상{衣裳}과 시간 장신구{裝身具}라는 한계로부터 너희와 함께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107:5.3 (1181.6) The mindedness of the Thought Adjuster is like the *mindednes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 that which is ancestral to the *minds* of the Conjoint Actor.

107:5.4 (1181.7) The type of mind postulated in an Adjuster must be similar to the mind endowment of numerous other orders of prepersonal entities which presumably likewise originate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ough many of these orders have not been revealed on Urantia, they all disclose minded qualities. It is also possible for these individuations of original Deity to become unified with numerous evolving types of nonmortal beings and even with a limited number of nonevolutionary beings who have developed capacity for fusion with such Deity fragments.

107:5.5 (1182.1) When a Thought Adjuster is fused with the evolving immortal morontia soul of the surviving human, the mind of the Adjuster can only be identified as persisting apart from the creature's mind until the ascending mortal attains spirit levels of universe progression.

107:5.6 (1182.2) Upon the attainment of the finaliter levels of ascendant experience, these spirits of the sixth stage appear to transmute some mind factor representing a union of certain phases of the mortal and Adjuster minds which had previously functioned as liaison between the divine and human phases of such ascending personalities. This experiential mind quality probably “supremacizes” and subsequently augments the experiential endowment of evolutionary Deity — the Supreme Being.

6. ADJUSTERS AS PURE SPIRITS

107:6.1 (1182.3) As Thought Adjusters are encountered in creature experience, they disclose the presence and leading of a spirit influence. The Adjuster is indeed a spirit, pure spirit, but spirit plus. We have never been able satisfactorily to classify Mystery Monitors; all that can certainly be said of them is that they are truly Godlike.

107:6.2 (1182.4) The Adjuster is man's eternity possibility; man is the Adjuster's personality possibility. Your individual Adjusters work to spiritize you in the hope of eternalizing your temporal identity. The Adjusters are saturated with the beautiful and self-bestowing love of the Father of spirits. They truly and divinely love you; they are the prisoners of spirit hope confined within the minds of men. They long for the divinity attainment of your mortal minds that their loneliness may end, that they may be delivered with you from the limitations of material investiture and the

너희가 **낙원**으로 가는 길은, 영에 도달하는 통로이며, **조울사**의 본성이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본성을 충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낙원**으로 상승한 뒤에, 그리고 영원한 생애의 완결성취자_이후{以後} 단계들에서, **조울사**는 영 사역이 아닌 다른 어떤 일에서 한때 인간 동반자였던 그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과 완결성취자로서 사는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 존재로 변화하는 필사자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울사**의 영적 사역 사이의 동업관계다.

우리는, **사고 조울사**가 영이고, 순수한 영이고, 짐작컨대 절대적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울사**는 또한 순전한 영 실체 이상의 무엇임에 틀림없다. 추측되는 마음가짐 외에 순수한 에너지 요소 역시 현존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근원이심을 기억한다면, 그의 단편{斷片}들이 양쪽 다 해당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것이다. **조울사**가, **낙원** **섬**에 있는 순간적인 보편적 인력 회로들을 따라서 공간을 횡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신비 관찰자가 그렇게 온갖 우주의 물질 회로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당황스럽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_인력 회로들을 따라서 전체 광우주에 두루 출현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이 외부 공간 층들까지 스며드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며; 그들은 틀림없이 **낙원**의 인력 현존을 따라서 이 지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와 같은 계층의 인격체가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들뿐 아니라 광우주 경계선 너머까지도 지나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외계 공간의 미지의 영역에서 **조울사**의 현존을 확실히 감지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조울사**가 물질_인력 회로들을 이용할지라도, 물질 창조물에서처럼 제한 받지는 않는다. **조울사**들은 인력의 결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인력의 전조의 단편들이며; 인력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실존의 어떤 우주 수준에서 분화됐다.

사고 조울사는, 자신이 증여된 그 순간부터, 필사 상대자가 자연사{自然死}를 맞이함에 따라서 **디비닝톤**을 향해 출발하도록 자신이 풀려나는 그 날까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대자가 자연사의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그들은, 이런 일시적 휴식조차 맛보지 못한다. **사고 조울사**는 에너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에너지, 즉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계층에 속하는 에너지다.

7. 조울사와 인격

사고 조울사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실체이며;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동안에 결코 실제

habilitments of time.

107:6.3 (1182.5) Your path to Paradise is the path of spirit attainment, and the Adjuster nature will faithfully unfold the revelation of the spiritual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Beyond the Paradise ascent and in the postfinaliter stages of the eternal career, the Adjuster may possibly contact with the onetime human partner in other than spirit ministry; but the Paradise ascent and the finaliter career are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d-knowing spiritualizing mortal and the spiritual ministry of the God-revealing Adjuster.

107:6.4 (1182.6) We know that Thought Adjusters are spirits, pure spirits, presumably absolute spirits. But the Adjuster must also be something more than exclusive spirit reality. In addition to conjectured mindedness, factors of pure energy are also present. If you will remember that God is the source of pure energy and of pure spirit, it will not be so difficult to perceive that his fragments would be both. It is a fact that the Adjusters traverse space over the instantaneous and universal gravity circuits of the Paradise Isle.

107:6.5 (1182.7) That the Mystery Monitors are thus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circu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indeed puzzling. But it remains a fact that they flash throughout the entire grand universe over the material-gravity circuits.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y may even penetrate the outer space levels; they certainly could follow the gravity presence of Paradise into these regions, and though my order of personality can traverse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also beyond the confines of the grand universe, we have never been sure of detecting the presence of Adjusters in the uncharted regions of outer space.

107:6.6 (1183.1) And yet, while the Adjusters utilize the material-gravity circuits, they are not subject thereto as is material creation. The Adjusters are fragments of the ancestor of gravity, not the consequentials of gravity; they have segmentized on a universe level of existence which is hypothetically antecedent to gravity appearance.

107:6.7 (1183.2) Thought Adjusters have no relaxation from the time of their bestowal until the day of their release to start for Divinington upon the natural death of their mortal subjects. And those whose subjects do not pass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do not even experience this temporary respite. Thought Adjusters do not require energy intake; they are energy, energy of the highest and most divine order.

7. ADJUSTERS AND PERSONALITY

107:7.1 (1183.3) Though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ies, but they are real entities; they are

로 인격화하지 못했더라도, 확실히 완전하게 개별화돼 있다. **사고 조울사**는 진정한 인격체가 아닐지라도; 진정한 실체, 즉 온갖 우주에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한 계층의 실체다--곧 그들은 신 {神}의 현존이다. 비록 인격적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이 경이로운 단편(斷片)들은 존재로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필사자들에게 현재 베푸는 사역의 영적 국면에 건주어, 영 실체로서 대개 언급된다.

사고 조울사들이 의지 특권과 선택 능력을 소유한 인격체가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필사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화 세계의 이 피조물에 자발적으로 내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질문하기는 쉽더라도, 아마 온갖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도 정확한 대답을 찾는 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속해 있는 **단독 사자** 계층의 인격체도, 인격적이지 않은 실체들 속에, 의지, 선택, 및 사랑이 부여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사고 조울사가 모든 인격이전의 선택 수준에서 반드시 자유의사를 소유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곤 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내주하며,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변경하고 대체시키며, 이 활동은 진정한 자유의사를 내포한다. 그들은 필사자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며, 우주가 위기에 있을 때 활동하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확고하게 행동할 준비가 항상 돼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매우 자발적인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영역과 관계없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의지와 부합될 만한 능력 행사를 나타내는 행동, 극대화된 결정을 확실히 드러낸다.

사고 조울사가 의지작용을 소유한다면, 그들은 왜 필사자의 의지에 따라가기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울사**의 의지작용이 본질적으로는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현현할 때에는 인격이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인격 수준에서 작용하며, 시공우주 전반에 걸쳐서 비인격 존재는--곧 인격없는 존재, 인격이하 존재, 인격이전 존재는--실존하는 인격체의 뜻과 활동에 항상 민감하다.

창조된 존재들 및 인격없는 에너지가 있는 우주 어디에서도, 인격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의지, 자유의사, 선택, 및 사랑을 우리는 목격할 수 없다. **조울사** 및 그와 유사한 다른 실체들의 경우 외에, 비인격 실체들과 연합해서 작용하는 인격의 이 속성을, 우리는 증거할 수 없다. **조울사**를 인격이하 존재로 구분함은 옳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런 실체를, 인격을 초월한 존재로 암시하는 것도 적당치 못하겠지만, 그런 존재를 인격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우리가 속한 계층의 존재들에게는, **신격**의 이 단편들이 신성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조울사**들이 기원에서 신성하다는 것, 그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truly and perfectly individualized, although they are never, while indwelling mortals, actually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not true personalities; they are *true realities*, realities of the purest order known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 they are the divine presence. Though not personal, these marvelous fragments of the Father are commonly referred to as beings and sometimes, in view of the spiritual phases of their present ministry to mortals, as spirit entities.

107:7.2 (1183.4) If Though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ies having prerogatives of will and powers of choice, how then can they select mortal subjects and volunteer to indwell thes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is is a question easy to ask, but probably no be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has ever found the exact answer. Even my order of personality, the Solitary Messengers,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endowment of will, choice, and love in entities that are not personal.

107:7.3 (1183.5) We have often speculated that Thought Adjusters must have volition on all *prepersonal* levels of choice. They volunteer to indwell human beings, they lay plans for man's eternal career, they adapt, modify, and substitut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and these activities connote genuine volition. They have affection for mortals, they function in universe crises, they are always waiting to act decisively in accordance with human choice, and all these are highly volitional reactions. In all situations not concerned with the domain of the human will, they unquestionably exhibit conduct which betokens the exercise of powers in every sense the equivalent of will, maximated decision.

107:7.4 (1183.6) Why then, if Thought Adjusters possess volition, are they subservient to the mortal will? We believe it is because Adjuster volition, though absolute in nature, is prepersonal in manifestation. Human will functions on the personality level of universe reality, and throughout the cosmos the impersonal — the nonpersonal, the subpersonal, and the prepersonal — is ever responsive to the will and acts of existent personality.

107:7.5 (1183.7) Throughout a universe of created beings and nonpersonal energies we do not observe will, volition, choice, and love manifested apart from personality. Except in the Adjusters and other similar entities we do not witness these attributes of personality functioning in association with impersonal realities. It would not be correct to designate an Adjuster as subpersonal, neither would it be proper to allude to such an entity as superpersonal, but it would be entirely permissible to term such a being prepersonal.

107:7.6 (1184.1) To our orders of being these fragments of Deity are known as the divine gifts. We recognize that the Adjusters are divine in

거의 무한한 영역에 두루, 모든 물질 피조물과 직접 무제한으로 교통할 가능성을 **만유의 아버지**가 남겨뒀음을 가리키는, 있음직한 증명이자 시범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그가 **낙원 아들**들의 인격 안에 현존하심, 또는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안에서 간접적으로 베푸는 보살핌을 통해서 현존하심과는 별개임을 인정한다.

신비 관찰자를 맞이하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을 피조 존재가 없겠지만, 완결성취자가 될 운명을 갖는,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 외에는, 다른 어떤 계층의 존재에게도 이처럼 내주하지 않는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origin, and that they constitute the probable proof and demonstration of a reservation by the Universal Father of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unlimited communication with any and all material creatures throughout his virtually infinite realms, and all of this quite apart from his presence in the personalities of his Paradise Sons or through his indirect ministrations in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107:7.7 (1184.2) There are no created beings that would not delight to be hosts to the Mystery Monitors, but no orders of beings are thus indwelt excepting evolutionary will creatures of finaliter destiny.

107:7.8 (1184.3)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108편. 사고 조율사의 사명과 섬김

⇨ 107

유란시아 책

10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8편

사고 조율사의 사명과 섬김

섹션

소개

1. 선택과 배정
2. 조율사가 내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
3. 조직과 경영
4.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5. 조율사의 사명
6.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소개

인류에 대해서 **사고 조율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 즉 **만유의 아버지**가 돼주는 것이며; 그것이 신성한 선물의 근본 업무다. 그들의 사명은 또한, 필사 정신을 발전시켜주는 것과, 사람들의 불멸하는 혼을 **낙원** 완전성이라는 신성한 절정 및 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을, 영원한 완결성취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변환시키는 체험을 겪으면서, **조율사**들은 독특한 유형의 존재, 즉 완전한 **조율사**와 완성된 피조물의 영원한 합동에서 이뤄지는 어떤 존재를 실존하게 하며, 그런 존재는 다른 어떤 우주 기법으로든지 결코 복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우주에서 아무것도, 비실존적 수준에서 겪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고 완전하신데, 그에게는, 다만 피조 체험과 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무한하게 포함된다. **하나님**은 잘못을 범할 수 없으며;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친히 체험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험적으로 아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험(先驗)지식은 실존적이다. 그러므로

PAPER 108

MISSION AND MINISTRY OF
THOUGHT ADJUSTERS

SECTIONS

Introduction

1. Selection and Assignment
2. Prerequisites of Adjuster Indwelling
3.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4. Relation to Other Spiritual Influences
5. The Adjuster's Mission
6. God in Man

INTRODUCTION

108:0.1 (1185.1) THE miss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o the human races is to represent, to be, the Universal Father to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hat is the fundamental work of the divine gifts. Their mission is also that of elevating the mortal minds and of translating the immortal souls of men up to the divine heights and spiritual levels of Paradise perfection. And in the experience of thus transforming the human nature of the temporal creature into the divine nature of the eternal finaliter, the Adjusters bring into existence a unique type of being, a being consisting in the eternal union of the perfect Adjuster and the perfected creature which it would be impossible to duplicate by any other universe technique.

108:0.2 (1185.2) Nothing in the entire universe can substitute for the fact of experience on nonexistential levels. The infinite God is, as always, replete and complete, infinitely inclusive of all things except evil and creature experience. God cannot do wrong; he is infallible. God cannot experientially know what he has never personally experienced; God's preknowledge is existential. Therefore does the spirit of the Father descend

아버지의 영은,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진실한 체험에 유한 필사자와 함께 동참하려고 **낙원**으로부터 내려오시며; 실존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진실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람에게 체험적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유한한 체험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며, 정말로 그 가능성은 인간이 인생의 변천을 겪는 체험을 실제로 공유하는, **조율사** 단편의 사역에서 실제화 된다.

1. 선택과 배정

필사자를 섬기기 위해 **디비닝톤**에서 파송될 때, **조율사**들은 실존적 신성{神性} 재능은 동일하지만, 진화하는 피조물 속에서, 그리고 그 피조물과 이전에 접촉한 것에 비례해서, 체험의 질이 다르다. 우리는 **조율사**를 배정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없지만, **조율사**가 내주할 인격체에 적응하는데 영원히 적합한, 어떤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 신성한 선물이 증여된다고 추측한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더 많이 체험한 **조율사**일수록 더 높은 유형의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유전형질은, 선택과 배정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는 요소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사교 조율사**가 자원자{自願者}임을 확고하게 믿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이 자원하기에 앞서, 내주하게 될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 조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측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스랍이 작성한 초안{草案}이, 지방우주 중심 지역에서 연방우주 본부를 향해 안쪽으로 확장하는 반사성 기법으로, **낙원**을 거쳐서 **디비닝톤**에 있는 **조율사** 예비 단체에 전달된다. 이 예측은, 필사 후보자의 유전적 조상들뿐 아니라, 예상되는 지적 재능 및 영적 수용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조율사**는, 충분히 통고 받은 친숙한 본성을 소유하는 정신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한다.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조율사**는 인간 후보자의 세 가지 자격조건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1. **지적 수용력.** 그 정신이 정상적인가? 지적 잠재력, 지성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개인이, 의지를 지닌 순수한 피조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지혜가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인가?

2. **영적 감지.** 경건하게 발달할 가능성, 즉 종교적 본성이 태동{胎動}하고 성장할 가능성. 혼의 잠재력, 감수성에 대한 예상되는 영적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

3.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의 총합.** 이런 두 가지 재능이 강건한 인간 성품을 낳고 생존할 가치

from Paradise to participate with finite mortals in every bona fide experience of the ascending career; it is only by such a method that the existential God could become in truth and in fact man's experiential Father. The infinity of the eternal God encompasses the potential for finite experience, which indeed becomes actual in the ministry of the Adjuster fragments that actually share the life vicissitude experiences of human beings.

1. SELECTION AND ASSIGNMENT

108:1.1 (1185.3) When Adjusters are dispatched for mortal service from Divinington, they are identical in the endowment of existential divinity, but they vary in experiential qualities proportional to previous contact in and with evolutionary creatures. We cannot explain the basis of Adjuster assignment, but we conjecture that these divine gifts are bestowed in accordance with some wise and efficient policy of eternal fitness of adaptation to the indwelt personality. We do observe that the more experienced Adjuster is often the indweller of the higher type of human mind; human inheritance must therefore be a considerable factor in determining selection and assignment.

108:1.2 (1185.4) Although we do not definitely know, we firmly believe that all Thought Adjusters are volunteers. But before ever they volunteer, they are in possession of full data respecting the candidate for indwelling. The seraphic drafts of ancestry and projected patterns of life conduct are transmitted via Paradise to the reserve corps of Adjusters on Divinington by the reflectivity technique extending inward from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This forecast covers not only the hereditary antecedents of the mortal candidate but also the estimate of probable intellectual endowment and spiritual capacity. The Adjusters thus volunteer to indwell minds of whose intimate natures they have been fully apprised.

108:1.3 (1186.1) The volunteering Adjuster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ree qualifications of the human candidate:

108:1.4 (1186.2) 1. *Intellectual capacity.* Is the mind normal? What is the intellectual potential, the intelligence capacity? Can the individual develop into a bona fide will creature? Will wisdom have an opportunity to function?

108:1.5 (1186.3) 2. *Spiritual perception.* The prospects of reverential development, the birth and growth of the religious nature. What is the potential of soul, the probable spiritual capacity of receptivity?

108:1.6 (1186.4) 3. *Combined intellectual and spiritual powers.* The degree to which these two

가 있는 불멸{不滅}의 혼을 확실히 진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여러 사실을 앞에 놓고, **관찰자**들은 배정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지원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마 하나 이상의 **조율사**가 지원하며; 아마 자원하는 이 **조율사** 무리 중에서, 필사 후보자의 인격을 영성화하고 영구화 시키는 과제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인격화된 감독 계층이 택할 것이다. (**조율사**의 배정과 봉사에서 피조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조율사가 자원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파송되기까지 사이의 짧은 기간을, **인격화된 관찰자**들의 **디비닝톤** 학교에서 보낸다고 추측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필사 정신의 실무 원형{原型}이, 인격에 접근하고 정신을 영성화{靈性化}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배정된 **조율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정신 모형은, 연방우주의 반사성 봉사가 공급하는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된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이고, **단독 사자들**의 긴 우주 경력 내내, 많은 **인격화된 조율사**와 접촉함으로써 얻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 우리가 얻은 확신이다.

조율사가 실제로 **디비닝톤**에서 일단 파송되고 나면, 그가 파송된 순간부터, 선택된 대상자의 정신 속에 출현하는 순간 까지 사이에는, 사실상 시간이 전혀 개재하지 않는다. **디비닝톤**에서 **유란시아**까지 걸리는 평균 운송시간은 117시간 42분 7초다. 실제로 이 시간은 모두 **우버사**에서 등록하는 데 사용된다.

2. 조율사가 내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인격체에 관한 예측이 **디비닝톤**에 전달되자마자 **조율사**들이 봉사를 자원하지만, 인간 대상자가 도덕적 인격체로서 첫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들의 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간 어린이가 하는 처음으로 하는 도덕적 선택은 일곱째 정신_보조체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을 경유해서, 연방우주 관찰 **으뜸 영**이 계신 가운데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정신_인력 회로에 등록되는 즉시, 그 **으뜸 영**이 이 정보를 **디비닝톤**에 보낸다. **조율사**는, **유란시아**에 있는 자신의 인간 대상자가 대체로 여섯 번째 생일이 되기 바로 전에 그에게 당도한다. 현재 세대에서는, 5년 10개월 4일이 되는 때에 이뤄지며; 다시 말하면, 지상 생애 중에서 2,134일째 날이다.

endowments may possibly be associated, combined, so as to produce strength of human character and contribute to the certain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of survival value.

108:1.7 (1186.5) With these facts before them, it is our belief that the Monitors freely volunteer for assignment. Probably more than one Adjuster volunteers; perhaps the supervising personalized orders select from this group of volunteering Adjusters the one best suited to the task of spiritualizing and eternalizing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candidate. (In the assignment and service of the Adjusters the sex of the creature is of no consideration.)

108:1.8 (1186.6) The short time intervening between the volunteering and the actual dispatch of the Adjuster is presumably spent in the Divinington schools of the Personalized Monitors where a working pattern of the waiting mortal mind is utilized in instructing the assigned Adjuster as to the most effective plans for personality approach and mind spiritization. This mind model is formulated through a combination of data supplied by the superuniverse reflectivity service. At least this is our understanding, a belief which we hold as the result of putting together information secured by contact with many Personalized Adjusters throughout the long universe careers of the Solitary Messengers.

108:1.9 (1186.7) When once the Adjusters are actually dispatched from Divinington, practically no time intervenes between that moment and the hour of their appearance in the minds of their chosen subjects. The average transit time of an Adjuster from Divinington to Urantia is 117 hours, 42 minutes, and 7 seconds. Virtually all of this time is occupied with registration on Uversa.

2. PREREQUISITES OF ADJUSTER INDWELLING

108:2.1 (1186.8) Though the Adjusters volunteer for service as soon as the personality forecasts have been relayed to Divinington, they are not actually assigned until the human subjects make their first moral personality decision. The first moral choice of the human child is automatically indicated in the seventh mind-adjutant and registers instantly, by way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over the universal mind-gravity circuit of the Conjoint Actor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who forthwith dispatches this intelligence to Divinington. Adjusters reach their human subjects on Urantia, on the average, just prior to the sixth birthday. In the present generation it is running five years, ten months, and four days; that is, on the 2,134th day of terrestrial life.

조율사는, 필사 정신이 보조 정신_영들의 내주하는 섬김으로 적당히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거룩한 영** 안에 회로화{回路化} 될 때까지, 필사 정신에 침투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조율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갖추지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모든 보조체의 협조 기능이 있어야 한다. 피조 정신은 경배를 시도하려는 태도를 나타내야 하며, 솟아나는 선과 악의 가치 사이에서 선택을--곧 도덕적 선택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임으로써 지혜가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율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의 무대가 설치되지만, **진리의 영**이 이런 서로 다른 영{靈} 사역의 영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세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런 정신에 내주하려고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증여 **아들**의 이 영이 현존한다면, 일곱째 보조 정신_영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정신_영이 그런 필사자 지능을 그동안 섬겼던, 연합된 여섯 보조체를 조정하는 잠재성을 성취했다고, **우주 어머니 영**에게 알리자마자, **조율사**가 어김없이 도래한다. 따라서 **오순절** 이후로 항상, **유란시아**에 있는 도덕적 상태의 모든 정상 지성인에게, 신성한 **조율사**들이 보편적으로 증여돼 왔다.

조율사들은, 심지어 **진리의 영**과 함께 정신에게 부여됐더라도, 도덕적 결정이 나타나기 전에는 필사자 지능을 임의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 결정이 일단 이뤄지면, 이 영 협조자는 **디비닝톤**으로부터 직접 관할권을 취하게 된다. 신성한 **조율사**와 그의 인간 대상자 사이에 끼어들거나 또는 다르게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능력도 작용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연결된다.

진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부여되던 때 이전에는, **조율사**들의 증여가, 여러 가지 영 영향력과 인격체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다. 우리는 그런 증여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며; 그런 진화하는 정신에 내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명한 **조율사**를 양도하도록, 정확하게 무엇이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 증여되기 전에 그런 정신 속에 **조율사**가 도착하는 것과 관련되는 듯 보이는 수많은 영향과 조건을 목격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인 스랍 수호자가 배정됨. 필사자에게 **조율사**가 내주한 적이 아직 없었다면, 개인 수호천사가 배정됨과 동시에 **조율사**가 주어진다. **조율사**의 섬김과 개인 스랍 수호자의 섬김 사이에는, 아주 뚜렷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다.

2. 지적 성취 및 영적 달성의 셋째 궤도가 달

108:2.2 (1187.1) The Adjusters cannot invade the mortal mind until it has been duly prepared by the indwelling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nd encircuited in the Holy Spirit. And it requires the co-ordinate function of all seven adjutants to thus qualify the human mind for the reception of an Adjuster. Creature mind must exhibit the worship outreach and indicate wisdom function by exhibiting the ability to choose between the emerging values of good and evil — moral choice.

108:2.3 (1187.2) Thus is the stage of the human mind set for the reception of Adjusters, but as a general rule they do not immediately appear to indwell such minds except on those worlds where the Spirit of Truth is functioning as a spiritual co-ordinator of these different spirit ministries. If this spirit of the bestowal Sons is present, the Adjusters unfailingly come the instant the seventh adjutant mind-spirit begins to function and signalizes to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at it has achieved in potential the co-ordination of the associated six adjutants of prior ministry to such a mortal intellect. Therefore have the divine Adjusters been universally bestowed upon all normal minds of moral status on Urantia ev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108:2.4 (1187.3) Even with a Spirit of Truth endowed mind, the Adjusters cannot arbitrarily invade the mortal intellect prior to the appearance of moral decision. But when such a moral decision has been made, this spirit helper assumes jurisdiction direct from Divinington. There are no intermediaries or other intervening authorities or powers functioning between the divine Adjusters and their human subjects; God and man are directly related.

108:2.5 (1187.4) Before the times of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the inhabitants of an evolutionary world, the Adjusters' bestowal appears to be determined by many spirit influences and personality attitudes.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laws governing such bestowals; we do not understand just what determines the release of the Adjusters who have volunteered to indwell such evolving minds. But we do observe numerous influences and conditions which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the arrival of the Adjusters in such minds prior to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and they are:

108:2.6 (1187.5) 1. The assignment of personal seraphic guardians. If a mortal has not been previously indwelt by an Adjuster, the assignment of a personal guardian brings the Adjuster forthwith. There exists some very definite but unknown rel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Adjusters and the ministry of personal seraphic guardians.

108:2.7 (1187.6) 2. The attainment of the third circle of

성됨. 셋째 계도를 획득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여하는 지방우주 인격체들에게 그런 성취가 미처 알릴 수 있기도 전에, **조율사**가 필사 정신 속에 도착하는 것을 나는 봐왔다.

3.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행성에서 개인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인간 행동은 대개, 기다리던 **조율사**가 즉시 도착하는 일이 수반된다.

4. 형제관계의 기질. 심령 계도들이 달성됐는지, 그리고 개인 수호천사가 배정됐는지에 상관없이--곧 위기에 내리는 결정과 비슷한 점이 전혀 없더라도--, 진화하는 필사자가 동료들 사랑을 마음으로 점령되고, 육신 속에 있는 형제를 사심 없이 섬기기에 몰두하게 되면, 기다리던 **조율사**는 그런 필사 사역자의 정신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내려온다.

5.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향을 공표함. 우리는, 공간 세계에서 많은 필사자가 **조율사**를 받을 준비가 외견상으로는 돼있으나, 아직 **관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본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의 하루하루 삶을 계속 지켜보는데, 그들은 곧 조용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결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교 조율사**가 즉시 파송되는 것을 목격한다.

6. **지존하신 분**의 영향. 필사 거주자의 진화하는 혼과 **조율사**가 융합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력에 반응해서 **조율사**들이 증여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런 증여가 **지존하신 분**에서 기원되는 어떤 시공우주 반사 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한다. 이 **조율사**들이, 진화하는 필사 정신 가운데 이 특정한 유형들과는 왜 융합할 수 없으며 또 융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 처리사항은 우리에게도 제시된 적이 전혀 없었다.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spiritual attainment. I have observed Adjusters arrive in mortal minds upon the conquest of the third circle even before such an accomplishment could be signaled to the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concerned with such matters.

108:2.8 (1187.7) 3. Upon the making of a supreme decision of unusual spiritual import. Such human behavior in a personal planetary crisis usually is attended by the immediate arrival of the waiting Adjuster.

108:2.9 (1187.8) 4. The spirit of brotherhood. Regardless of the attainment of the psychic circles and the assignment of personal guardians — in the absence of anything resembling a crisis decision — when an evolving mortal becomes dominated by the love of his fellows and consecrated to unselfish ministry to his brethren in the flesh, the waiting Adjuster unvaryingly descends to indwell the mind of such a mortal minister.

108:2.10 (1188.1) 5. Declaration of intention to do the will of God. We observe that many mortals on the worlds of space may be apparently in readiness to receive Adjusters, and yet the Monitors do not appear. We go on watching such creatures as they live from day to day, and presently they quietly, almost unconsciously, arrive at the decision to begin the pursuit of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then we observe the immediate dispatch of the Thought Adjusters.

108:2.11 (1188.2) 6. Influence of the Supreme Being. On worlds where the Adjusters do not fuse with the evolving souls of the mortal inhabitants, we observe Adjusters sometimes bestowed in response to influences which are wholly beyond our comprehension. We conjecture that such bestowals are determined by some cosmic reflex action originating in the Supreme Being. As to why these Adjusters can not or do not fuse with these certain types of evolving mortal minds we do not know. Such transactions have never been revealed to us.

3. 조직과 경영

우리가 아는 한, **조율사**들은 온갖 우주에 어떤 독립적 활동 단위로 조직되며, **디비닝톤**으로부터 직접 관리되는 듯하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두루 균일하며, 모든 지방우주는 동일한 유형의 **신비 관찰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수많은 계열의 **조율사**가 여러 인종을 통해서, 여러 섭리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세계, 체계, 및 우주들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조직에 관련됨을 관찰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물이 광우주 전역에서 상호 교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추적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3.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08:3.1 (1188.3) As far as we know, Adjusters are organized as an independent working unit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re apparently administered directly from Divinington. They are uniform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all local universes being served by identical types of Mystery Monitors. We do know from observation that there are numerous series of Adjusters involving a serial organization that extends through races, over dispensations, and to worlds, systems, and universes. It is, however, exceedingly difficult to keep track of these divine

조율사는 (**디비닝톤** 바깥에서) 오직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만 완벽하게 기록된다. 상승하는 각 피조물에 내주하는 각 **조율사**의 숫자와 계층을 **낙원** 권세자들이 연방우주 본부에 통보하며, 그곳으로부터 관련된 지방우주 본부에 소식이 전해지고, 관계된 특정한 행성까지 전달된다. 그러나 지방우주에 전달된 기록은 **사고 조율사**들에 대해서 완전한 숫자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네바돈**의 기록은 **태고 항존자**들의 대리인들이 제시한 대로, 지방우주에 배정된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조율사**들의 완전한 숫자의 실제 의미는 오직 **디비닝톤**에만 알려져 있다.

인간 대상자는 종종 그 **조율사**의 번호로 알려지는데, 필사자는 **조율사**와 융합될 때까지 참된 우주 이름을 받지 못하며, 새로운 피조물에게 운명 수호천사가 새 이름을 수여함으로써 그 합동이 알려진다.

오르본톤에 있는 **사고 조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고 경영상 관계가 전혀 없을지라도, 지방우주에 속한 개별 세계들과 **디비닝톤**에 있는 신성한 선물로서의 중앙 거점(據點) 사이에, 매우 밀접한 경영상 관계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낙원** 중여 **아들**이 출현한 후에는, 진화 세계에 **조율사**들의 행성 감독관으로서 배정된 한 **인격화된 조율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방우주 검열자들이 행성 검사를 시행할 때, 진화하는 세계의 경영을 위해서 배속된 다른 계층의 존재들에게, 그리고 스라빔의 우두머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성의 **사고 조율사** 우두머리에게 항상 직접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유란시아**는 **타바만시아**에게 그런 주기적(週期的) 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는 **네바돈** 우주에 있는 생명을 실험하는 모든 행성을 다스리는 감독관이다. 그리고 여러 기록이 계시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초인적인격을 지닌 다방면의 우두머리들에게 훈계와 기소장을 하달한 것 외에, **조율사**들의 우두머리에게 아래와 같은 인정서를 전달했는데, 행성, **살빙톤**, **우버사**, 또는 **디비닝톤** 가운데 어디 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들에게, 나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들에게, 나는 여러 실험적 행성 계열에 대한 임시 권위를 갖고 임명된 자로서 왔으며; 나는 이 격조 높은 천상의 사역자 집단, 즉 이런 변칙적인 구체에서 봉사하려고 자원한 **신비 관찰자**들에게 찬미와 깊은 존경심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그 위기가

gifts since they function interchangeabl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108:3.2 (1188.4) Adjusters are of complete record (outside of Divinington) only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number and order of each Adjuster indwelling each ascending creature are reported out by the Paradise authorities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from there are communicat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and relayed to the particular planet involved. But the local universe records do not disclose the full number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Nebadon records contain only the local universe assignment number as designat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Adjuster's complete number is known only on Divinington.

108:3.3 (1188.5) Human subjects are often known by the numbers of their Adjusters; mortals do not receive real universe names until after Adjuster fusion, which union is signalized by the bestowal of the new name upon the new creature by the destiny guardian.

108:3.4 (1188.6) Though we have the records of Thought Adjusters in Orvonton, and though we have absolutely no authority over them or administrative connection with them, we firmly believe that there is a very close administrative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central lodgment of the divine gifts on Divinington. We do know that, following the appearance of a Paradise bestowal Son, an evolutionary world has a Personalized Adjuster assigned to it as the planetary supervisor of Adjusters.

108:3.5 (1189.1)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local universe inspectors always address themselves, when carrying out a planetary examination, to the planetary chief of Thought Adjusters, just as they deliver charges to the chiefs of seraphim and to the leaders of other orders of beings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 of an evolving world. Not long since, Urantia underwent such a periodic inspection by Tabamantia, the sovereign supervisor of all life-experiment planets in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records reveal that, in addition to his admonitions and indictments delivered to the various chiefs of superhuman personalities, he also delivered the following acknowledgment to the chief of Adjusters, whether located on the planet, on Salvington, Uversa, or Divinington, we do not definitely know, but he said:

108:3.6 (1189.2) “Now to you, superiors far above me, I come as one placed in temporary authority over the experimental planetary series; and I come to express admiration and profound respect for this magnificent group of celestial ministers, the Mystery Monitors, who have volunteered to serve

얼마나 견디기 어렵든지, 당신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바돈**의 기록은 물론, **오르본톤** 위원회 앞에서도, 신성한 **조율사**에 대해서 고소당할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책임 맡은 대로 이행했으며; 신성하게 충실했습니다. 당신들은, 혼란에 빠진 이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존재의 잘못을 조절하고 부족함이 배워지도록 도왔습니다. 당신들은 경이로운 존재요, 뒤쳐진 이 영역의 혼들 속에서 선(善)을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자발적 사역자로서 외견상 내 관할 아래 있는 동안일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참으로 사심(私心) 없음, 사려 깊은 섬김, 및 전적 헌신을 깨달으면서, 나는 당신들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당신들은, 투쟁이 난무하며, 비탄에 잠기고, 병으로 시달리는 이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에게, **하나님** 같은 봉사자로서 칭호 받을 만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경배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암시된 여러 계층의 흔적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고 조율사**들이 철저하게 조직됐음을 믿으며, **디비닝톤**일 것으로 추측되는, 매우 멀리 있고 중심적 근원이 되는 어떤 곳으로부터, 이 신성한 선물들을 매우 지성적이고 효과 있게 지시 경영하는 체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디비닝톤**으로부터 여러 세상으로 가고, 그들의 상대자가 죽으면 반드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비교적 높은 영 계층 가운데서는 경영 체계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속한 인격체 계층은, 수많은 다른 인격적 및 비인격적 하위 **신격** 집단, 즉 광범한 우주를 서로 관련짓게 하는 자로서 단결하여 활동하는 그들과, 의심의 여지없이 무의식적으로 널리 관계한다. (**인격화된 조율사들** 외에) 우리가 여러 계층의 인격이전 실재의 현존을 확실히 의식하는, 유일한 인격화된 피조물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우리는 **조율사**들의 현존을 자각하는데, 이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이전 **신격** 단편(斷片)이다. 우리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의 현존을 감지하는데, 이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초월인격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에게서 나오는, 계시되지 않은 특정한 계층의 영 현존을 반드시 탐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또 다른 실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단독 사자**들은,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확장되는 **신격** 안에 등록되는 이런 다양한 영향력을 조정하는 인격체다. 시간세계의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현상을 체험으로 통합시키는 데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

on this irregular sphere. No matter how trying the crises, you never falter. Not on the records of Nebadon nor before the commissions of Orvonton has there ever been offered an indictment of a divine Adjuster. You have been true to your trusts; you have been divinely faithful. You have helped to adjust the mistakes an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all who labor on this confused planet. You are marvelous beings, guardians of the good in the souls of this backward realm. I pay you respect even while you are apparently under my jurisdiction as volunteer ministers. I bow before you in humble recognition of your exquisite unselfishness, your understanding ministry, and your impartial devotion. You deserve the name of the Godlike servers of the mortal inhabitants of this strife-torn, grief-stricken, and disease-afflicted world. I honor you! I all but worship you!"

108:3.7 (1189.3) As a result of many suggestive lines of evidence, we believe that the Adjusters are thoroughly organized, that there exists a profoundly intelligent and efficient directive administration of these divine gifts from some far-distant and central source, probably Divinington. We know that they come from Divinington to the worlds, and undoubtedly they return thereto upon the deaths of their subjects.

108:3.8 (1189.4) Among the higher spirit orders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discover the mechanisms of administration. My order of personalities, while engaged in the prosecution of our specific duties, is undoubtedly unconsciously participating with numerous other personal and impersonal sub-Deity groups who unitedly are functioning as far-flung universe correlators. We suspect that we are thus serving because we are the only group of personalized creatures (aside from Personalized Adjusters) who are uniformly conscious of the presence of numerous orders of the prepersonal entities.

108:3.9 (1189.5) We ar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 Adjusters, who are fragments of the prepersonal De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sense the presence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who are superpersonal expressions of the Paradise Trinity. We likewise unfailingly detect the spirit presence of certain unrevealed orders springing from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nd we are not wholly unresponsive to still other entities unrevealed to you.

108:3.10 (1190.1) The Melchizedeks of Nebadon teach that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personality co-ordinators of these various influences as they register in the expanding Deity of the evolutionary Supreme Being. It is very possible that we may be participants in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many of the unexplained phenomena of time, but we are not consciously certain of thus functioning.

4.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신격의 다른 단편(斷片)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조울사**는 필사 정신 속의 활동 영역에서 매우 고독한 존재다. **아버지**께서 광우주에 두루, 모든 능력과 권위를 직접 친히 행사하기를 그만두신 듯 보이더라도, **낙원 신격**들의 자녀인 **최상급 창조주**들을 위한 이런 포기 행위에, **아버지**께서는 **낙원 아들**들의 영적 인력과 대등하게, 모든 피조물 창조를 자신에게 이끌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진화하는 피조물의 정신과 혼 속에 현존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없는 권한을, 확실히 독점해 오셨다는 사실을 **신비 관찰자**는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너희의 **낙원** 중여 **아들**이 아직 **유란시아**에 있을 때, “내가 들림 받으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씀했다. **낙원 아들**들 및 그 창조 동역자들이 이끌어 내는 이 영적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지만, 인간 정신 속에 거주하면서 그토록 힘차게 역사하는 이 **신비 관찰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토록 온전히 지혜롭게 활동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비록 사람들의 자녀의 정신 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더라도, 온갖 우주의 운행(運行)에 종속적이거나 대등하거나 또는 외견상 관련된 듯하지 않으면서, 이 신비스런 현존들은, 자신이 내주하는 피조물에게 신성한 이상(理想)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며, 앞날의 더 나은 삶의 목적과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들을 항상 위로 이끌어 준다. 이 **신비 관찰자**들은, **미가엘**이 **네바돈** 전 우주에 걸친 영적 통치권을 형성하도록 끊임없이 돕는 한편, **오르본톤**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주권을 안정시키는 데 신비롭게 기여한다. **조울사**는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최상급 창조주** 역시 바로 그 뜻을 몸소 실현하므로, **조울사**의 작용과 우주 통치자들의 주권은 상호 의존적이어야만 함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조울사**로서 현존하심과, **아버지**가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통치하심은, 동일한 신성(神性)이 다양하게 형태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고 조울사들은, 다른 어떤 영적 현존과도 아주 상관없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모든 영 영향의 성능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아주 벗어나서, 우주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외견상 독립성에 상관없이, 장기간의 관찰 결과가 명백히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사고 조울사**들은 인간 정신 속에서, 보조 정신-영들,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및 기타 영향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영 사역과 완전히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한다.

4. RELATION TO OTHER SPIRITUAL INFLUENCES

108:4.1 (1190.2) Apart from possible co-ordination with other Deity fragments, the Adjusters are quite alone in their sphere of activity in the mortal mind. The Mystery Monitors eloquently bespeak the fact that, though the Father may have apparently resigned the exercise of all direct personal power and authorit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notwithstanding this act of abnegation in behalf of the Supreme Creator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Father has certainly reserved to himself the unchallengeable right to be present in the minds and souls of his evolving creatures to the end that he may so act as to draw all creature creation to himself, co-ordinately with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Paradise Sons. Said your Paradise bestowal Son when yet on Urantia, “I, if I am lifted up, will draw all men.” This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Paradise Sons and their creative associates we recognize and understand, but we do not so fully comprehend the methods of the all-wise Father’s functioning in and through these Mystery Monitors that live and work so valiantly within the human mind.

108:4.2 (1190.3) While not subordinate to, co-ordinate with, or apparently related to, the work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ough acting independently in the minds of the children of men, unceasingly do these mysterious presences urge the creatures of their indwelling toward divine ideals, always luring them upward toward the purposes and aims of a future and better life. These Mystery Monitors are continually assis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dominion of Michael throughout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mysteriously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Ancients of Days in Orvonton. The Adjusters are the will of God, and since the Supreme Creator children of God also personally embody that same will, it is inevitable that the actions of Adjusters and the sovereignty of the universe rulers should be mutually interdependent. Though apparently unconnected, the Father presence of the Adjusters and the Father sovereignty of Michael of Nebadon must be diverse manifestations of the same divinity.

108:4.3 (1190.4) Thought Adjusters appear to come and go quite independent of any and all other spiritual presences; they se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universe laws quite apart from those which govern and control the performances of all other spirit influences. But regardless of such apparent independence, long-range observation unquestionably discloses that they function in the human mind in perfect synchrony and co-ordination with all other spirit ministries, including adjutant mind-spirits, Holy Spirit, Spirit of Truth,

캘리개스타 동란이 있는 후에 **유란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한 세계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될 때, 한 행성이 회로화 된 모든 외부의 대화 통로에서 차단될 때, 개인 사자(使者)들 외에는, 행성 사이 또는 우주와 직접 통신하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구체들에 있는 **조율사**들의 연락을 통해서 이뤄진다. 어떤 세계 또는 우주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조율사**는 결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행성이 고립된다고 해서 **조율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않으며, 지방우주, 연방우주, 또는 중앙우주의 어느 부분과 통화할 수 있는 역량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명 예비 단체인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 **조율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고립된 세계에서 그토록 자주 일어난다. 행성의 고립에 따르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기법에 의뢰한다. 천사장들의 회로가 **유란시아**에서도 최근에 다년간 작용해 왔으나, 그 통화 수단은 천사장 단체들 자체의 처리사항에서만 가능하도록 지극히 제한된다.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광범한 우주에서 많은 영 현상을 인지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아직 정통하지 못하며; 나는, 이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인력 사자**들 및 특정한 유형의 **신비 관찰자**들이 해낸다고 믿는다. 나는 **조율사**가 오직 필사 정신을 개조하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나는, **인격화된 관찰자**들 및 기타 계층들의 계시되지 않은 인격이전 영들이, 그 영역의 피조물과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접촉을 대표한다고 확신한다.

5. 조율사의 사명

유란시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혼합 존재들 속에 내주하기를 자원했을 때, **조율사**들은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의 정신 속에 존재하면서, 거기서 그 영역의 영적 지성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 메시지를 물질 정신에게 다시 지시하거나 번역해주는 과제를 떠맡아 왔으며; 그들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조물이 충분한 정도의 협동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 상대자의 체험 속에 기억시키지 못하는 그 항목들을, **사고 조율사**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지금 전달하는 것과 똑같이, **사고 조율사**는,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 즉 그의 약혼자인 그 사람에게 그가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다음 단계의 실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전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조율사**는,

and other influences.

108:4.4 (1190.5) When a world is isolated by rebellion, when a planet is cut off from all outside encircuited communication, as was Urantia after the Caligastia upheaval, aside from personal messengers there remains but one possibility of direct interplanetary or universe communication, and that is through the liaison of the Adjusters of the spheres. No matter what happens on a world or in a universe, the Adjusters are never directly concerned. The isolation of a planet in no way affects the Adjusters and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ny part of the local universe, superuniverse, or the central universe. And this is the reason why contacts with the supreme and the self-acting Adjusters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are so frequently made on quarantined worlds. Recourse is had to such a technique as a means of circumventing the handicaps of planetary isolation. In recent years the archangels' circuit has functioned on Urantia, but that means of communication is largely limited to the transactions of the archangel corps itself.

108:4.5 (1191.1) We are cognizant of many spirit phenomena in the far-flung universe which we are at a loss fully to understand. We are not yet masters of all that is transpiring about us; and I believe that much of this inscrutable work is wrought by the Gravity Messengers and certain types of Mystery Monitors. I do not believe that Adjusters are devoted solely to the remaking of mortal minds. I am persuaded that the Personalized Monitors and other orders of unrevealed prepersonal spirits are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Father's direct and unexplained contact with the creatures of the realms.

5. THE ADJUSTER'S MISSION

108:5.1 (1191.2) The Adjusters accept a difficult assignment when they volunteer to indwell such composite beings as live on Urantia. But they have assumed the task of existing in your minds, there to receive the admonitions of the spiritual intelligences of the realms and then to undertake to redictate or translate these spiritual messages to the material mind; they are indispensable to the Paradise ascension.

108:5.2 (1191.3) What the Thought Adjuster cannot utilize in your present life, those truths which he cannot successfully transmit to the man of his betrothal, he will faithfully preserve for use in the next stage of existence, just as he now carries over from circle to circle those items which he fails to register in the experience of the human subject, owing to the creature's inability, or failure, to give a sufficient degree of co-operation.

108:5.3 (1191.4) One thing you can depend upon: The

보호하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것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영 협조자가 태만한 것을 결코 본적이 없다. 지방우주 유형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천사 및 기타 높은 유형의 영 존재들이, 이따금 악을 용납하여, 때로 신성한 길을 벗어날지 모르지만, **조율사**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신뢰할만하며, 이것은 일곱 집단 전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너의 **조율사**는, 너를 새로운 다음 계층의 실존이 되게 하는 잠재력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이루도록 미리 증여된 존재다. 너의 의지가 동의함으로, 그리고 그 동의를 얻어서, **조율사**는 물질 정신의 피조물 성향을 굴복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따르게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행동은 떠오르는 모른시아 혼의 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신비 관찰자는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사고를 조율하는 자다. 그들은 새 세계들을 위한 새로운 정신과 너의 미래 생애의 새 이름을 이를 목적으로, 조율하고 영성화 시킴으로, 물질 정신과 함께 수고한다. 그들의 사명은 이 생애가 아니라 주로 미래의 생애와 관련된다. 그들은 현세의 도우미가 아니라, 하늘의 도우미라고 불린다. 그들은 필사자의 생애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너의 인생을 합리적인 정도로 어렵고 괴롭게 해서, 결심이 이뤄지도록 자극하고, 더 많은 결심이 이뤄지도록 하기에 관심을 둔다. 위대한 **사고 조율사** 현존은, 삶을 편안하게 하거나 고심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보다, 심오한 마음 속 평화와 뛰어난 영의 평강을 제공하는 신성한 선물이다.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너의 기쁘고 슬픈 감정은, 내적{內的}인 심령 풍토와 외적{外的}인 물질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이기적인 위로와 필사자의 안위를 **조율사**가 제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조율사**가 하는 일은, 영원한 모험을 하도록 너를 준비시키는 것, 즉 네가 꼭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의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거나 상한 자존심을 보살피는 것은 **신비 관찰자**의 사명이 아니며; **조율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상승하는 긴 생애를 위하여 너의 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조율사가 너희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너희의 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성한 **관찰자**와 인간 정신이 시공우주에서 연합할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라 성취하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비다. 이것이 바로, 필사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숭고한 선물에 맞는 적당한 이름을 찾기에 우리가 그토록 고심하는 바로 그 이유다.

Adjusters will never lose anything committed to their care; never have we known these spirit helpers to default. Angels and other high types of spirit beings, not excepting the local universe type of Sons, may occasionally embrace evil, may sometimes depart from the divine way, but Adjusters never falter. They are absolutely dependable, and this is equally true of all seven groups.

108:5.4 (1191.5) Your Adjuster is the potential of your new and next order of existence, the advance bestowal of your eternal sonship with God. By and with the consent of your will, the Adjuster has the power to subject the creature trends of the material mind to the transforming actions of the motivations and purposes of the emerging morontial soul.

108:5.5 (1191.6) The Mystery Monitors are not thought helpers; they are thought adjusters. They labor with the material min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by adjustment and spiritualization, a new mind for the new worlds and the new name of your future career. Their mission chiefly concerns the future life, not this life. They are called heavenly helpers, not earthly helpers. They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the mortal career easy; rather are they concerned in making your life reasonably difficult and rugged, so that decisions will be stimulated and multiplied. The presence of a great Thought Adjuster does not bestow ease of living and freedom from strenuous thinking, but such a divine gift should confer a sublime peace of mind and a superb tranquility of spirit.

108:5.6 (1192.1) Your transient and ever-changing emotions of joy and sorrow are in the main purely human and material reactions to your internal psychic climate and to your external material environment. Do not, therefore, look to the Adjuster for selfish consolation and mortal comfort. It is the business of the Adjuster to prepare you for the eternal adventure, to assure your survival. It is not the mission of the Mystery Monitor to smooth your ruffled feelings or to minister to your injured pride; it is the preparation of your soul for the long ascending career that engages the attention and occupies the time of the Adjuster.

108:5.7 (1192.2) I doubt that I am able to explain to you just what the Adjusters do in your minds and for your souls. I do not know that I am fully cognizant of what is really going on in the cosmic association of a divine Monitor and a human mind. It is all somewhat of a mystery to us, not as to the plan and purpose but as to the actual mode of accomplishment. And this is just why we are confronted with such difficulty in finding an appropriate name for these supernal gifts to mortal men.

사고 조율사는 너의 두려워하는 느낌을 사랑과 신뢰의 확신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나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두려움의 족쇄에서 너 자신을 구해내는 그 결정을 내릴 때, 너는 글자 그대로 심령의 지레 받침을 제공하고, 그 위에 **조율사**가 들어 올리고, 진보하는 빛을 주는 영적 지렛대를 나중에 작동시킬지 모른다.

인종들의 비교적 높은 성향과 비교적 낮은 성향 사이에, (단지 너희가, 옳다, 그르다,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거나 그른 것 사이에 날카롭고 잘_규정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런 체험에 **조율사**가 결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할 것임을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조율사** 활동을 그 인간 동반자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그 가치와 실재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네가 개인 운명 수호자를 소유하고도 생존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수호천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조율사**는, 그 상대자가 생존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모두가 알기로, 천사는 섬김의 완전성에서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사고 조율사**는 **낙원**의 완전한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사역에는, **디비닝톤** 바깥의 어떤 존재에게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기법의 특징이 있다. 너희는 완벽한 인도자를 가졌으며; 따라서 완전하게 되는 그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

6.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숭고하고 완전한 **조율사**가, 동물로부터_기원된 이 세상 존재와 일정 기간 시험적인 합동을 성취하도록, **유란시아**의 필사자 같은 물질 피조물의 정신 속에 실제로 실존하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신성한 겸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상관없이, 신성한 **아들**의 증여가 있는 후에, 그리고 **진리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증여된 후에는, **조율사**들은 의지를 지닌 모든 정상 피조물의 정신에 내주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으로 몰려온다. **낙원** 증여 **아들**이 사을 완수함에 따라서, 이 **관찰**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 나라”가 됐다.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선물을 증여하심으로써, 죄와 악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접근 하셨는데, **조율사**가 필사 정신 속에, 심지어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不義} 한가운데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음이 참으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내주하는 **조율사**는, 순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고{思考} 때문에 각별히 고통당하며; 아름답고 신성한 것에 대한 불경함으로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의 어리석은

108:5.8 (1192.3) The Thought Adjusters would like to change your feelings of fear to convictions of love and confidence; but they cannot mechanically and arbitrarily do such things; that is your task. In executing those decisions which deliver you from the fetters of fear, you literally supply the psychic fulcrum on which the Adjuster may subsequently apply a spiritual lever of uplifting and advancing illumination.

108:5.9 (1192.4) When it comes to the sharp and well-defined conflicts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tendencies of the races, between what *really* is right or wrong (not merely what you may call right and wrong), you can depend upon it that the Adjuster will always participate in some definite and active manner in such experiences. The fact that such Adjuster activity may be unconscious to the human partner does not in the least detract from its value and reality.

108:5.10 (1192.5) If you have a personal guardian of destiny and should fail of survival, that guardian angel must be adjudicated in order to receive vindication as to the faithful execution of her trust. But Thought Adjusters are not thus subjected to examination when their subjects fail to survive. We all know that, while an angel might possibly fall short of the perfection of ministry, Thought Adjusters work in the manner of Paradise perfection; their ministry is characterized by a flawless technique which is beyond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by any being outside of Divinington. You have perfect guides; therefore is the goal of perfection certainly attainable.

6. GOD IN MAN

108:6.1 (1192.6) It is indeed a marvel of divine condescension for the exalted and perfect Adjusters to offer themselves for actual existence in the minds of material creatures, such as the mortals of Urantia, really to consummate a probationary union with the animal-origin beings of earth.

108:6.2 (1193.1) No matter what the previous status of the inhabitants of a world, subsequent to the bestowal of a divine Son and after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humans, the Adjusters flock to such a world to indwell the minds of all normal will creatur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mission of a Paradise bestowal Son, these Monitors truly become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Through the bestowal of the divine gifts the Father makes the closest possible approach to sin and evil, for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Adjuster must coexist in the mortal mind even in the very midst of human unrighteousness. The indwelling Adjusters are particularly tormented by those thoughts which are purely sordid and selfish;

동물적 두려움과 유치한 근심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궤방 받는다.

신비 관찰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만유의 아버지**를 증여한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주에 널리 반영한 것이다. 어느 위대한 선생은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자기 정신의 기질이 새로워져야 하며;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움 속에서, 완벽한 진리 가운데 창조된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조울사**는 신성의 표지, 즉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닮았다거나 물질 피조물 재능의 제한된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들에 있는 비천한 피조물에게 **사고 조울사**를 숭고하게 증여하면서, **만유의 아버지**가 영으로 현존하시는 선물을 뜻한다.

조울사는 네 안에서 영적 달성의 원천(源泉)이요, 신성한 성품을 얻을 희망이다. 그는 생존의 권능, 특권, 및 가능성이요, 너희를 단순한 동물 피조물로부터 그토록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별시켜 준다. 물질적 육신의 신경-에너지 장치를 따라 정신에 미치는 외적(外的) 및 육체적 충동과는 현저히 다르게, 그는 더 높고 정말로 내부에서 생각하게 하는 영적 충동이다.

미래의 생애를 맡은 이 충성된 관리인들은, 정신이 창작한 모든 것을 영적 사본으로 반드시 복사(複寫)하며; 생존하는 세계에서 너희가 정말로 (오직 영적으로) 부활되도록, 너희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다시_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절묘하게 영적으로 다시_창조하는 이것들은 모두, 너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떠오르는 실체, 즉 너의 모론시아 자아 속에 간직되고 있다. **조울사**가 이렇게 창조한 복제품(複製品)을 의식의 빛 속에 드러내기에 충분한 만큼 좀처럼 강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이 실체들은 실제로 있다.

네가 육신적으로 부모인 것처럼, **조울사**도 진짜 너, 즉 더 높고 발전된 너의 자아, 너의 더 나은 모론시아 자아 및 미래의 영적 자아에게 거룩한 부모가 된다. 심판관과 검열관들이 너의 생존을 판결하고 새로운 세계로 너를 올려 보내서, 너의 충실하신 동역자와--즉 **하나님**이신 **조울사**와--영원히 함께해서 끝없이 실존하게 될 때,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조울사들은, 너희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영원한 조상, 신성한 원본이며; 영적인 미래의 생애를 고려해서, 물질적인 현재의 실존을 통달하려고 애쓰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끊임없는 충동이다. **관찰자**들은 사라지지 않는 희망에 사로잡힌 자들, 즉 영원한 진보의 원천이다. 그리고 다소간의 직통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상대자와 대화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즐기는지! 상징 또는 기타 간접 방법을 배제하고, 전할 메시지를 인간 동반자의 지능

they are distressed by irreverence for that which is beautiful and divine, and they are virtually thwarted in their work by many of man's foolish animal fears and childish anxieties.

108:6.3 (1193.2) The Mystery Monitors are undoubtedly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flection of the image of God abroad in the universe. A great teacher once admonished men that they shoul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their minds; that they become new men who, like God, are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in the completion of truth. The Adjuster is the mark of divinity, the presence of God. The “image of God” does not refer to physical likeness nor to the circumscribed limitations of material creature endowment but rather to the gift of the spirit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upernal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upon the humble creatures of the universes.

108:6.4 (1193.3) The Adjuster is the wellspring of spiritual attainment and the hope of divine character within you. He is the power, privilege, and the possibility of survival, which so fully and forever distinguishes you from mere animal creatures. He is the higher and truly internal spiritual stimulus of thought in contrast with the external and physical stimulus, which reaches the mind over the nerve-energy mechanism of the material body.

108:6.5 (1193.4) These faithful custodians of the future career unfailingly duplicate every mental creation with a spiritual counterpart; they are thus slowly and surely re-creating you as you really are (only spiritually) for resurrection on the survival worlds. And all of these exquisite spirit re-creations are being preserved in the emerging reality of your evolving and immortal soul, your morontia self. These realities are actually there, notwithstanding that the Adjuster is seldom able to exalt these duplicate creations sufficiently to exhibit them to the light of consciousness.

108:6.6 (1193.5) And as you are the human parent, so is the Adjuster the divine parent of the real you, your higher and advancing self, your better morontial and future spiritual self. And it is this evolving morontial soul that the judges and censors discern when they decree your survival and pass you upward to new worlds and never-ending existence in eternal liaison with your faithful partner — God, the Adjuster.

108:6.7 (1193.6) The Adjusters are the eternal ancestors, the divine originals, of your evolving immortal souls; they are the unceasing urge that leads man to attempt the mastery of the material and present existence in the light of the spiritual and future career. The Monitors are the prisoners of undying hope, the fountains of everlasting progression. And how they do enjoy communicating with their subjects in more or less

속에 직접 떠오르게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 인간은 거의 무한한 파노라마를 끝없이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흐뭇한 봉사, 비길 데 없는 모험, 장엄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한한 달성을 위한, 끝이_없는 언제나_넓어지는 기회의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한다. 어둠이 머리 위에 드리울 때, 내주하는 **조울사**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너의 신앙이 받아들여야 하며, 너는 필사자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너머로 눈을 들어서,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이 손짓해 부르는, 높은 곳 위에 영원한 의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direct channels! How they rejoice when they can dispense with symbols and other methods of indirection and flash their messages straight to the intellects of their human partners!

108:6.8 (1194.1) You humans have begun an endless unfolding of an almost infinite panorama, a limitless expanding of never-ending, ever-widening spheres of opportunity for exhilarating service, matchless adventure, sublime uncertainty, and boundless attainment. When the clouds gather overhead, your faith should accept the fact of the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thus you should be able to look beyond the mists of mortal uncertainty into the clear shining of the sun of eternal righteousness on the beckoning heights of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108:6.9 (1194.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109편. 조율사와 우주 피조물의 관계

⇨ 108

유란시아 책

110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09편

조율사와 우주 피조물의 관계

섹션

소개

1. 조율사의 성장
2.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
3. 조율사와 필사자 유형의 관계
4. 조율사와 인간 인격
5. 조율사의 내주에 대한 물질적 장애
6. 참된 가치의 영속
7. 인격화된 조율사의 운명

PAPER 109

RELATION OF ADJUSTERS TO
UNIVERSE CREATURES

SECTIONS

Introduction

1. Development of Adjusters
2. Self-Acting Adjusters
3. Relation of Adjusters to Mortal Types
4. Adjusters and Human Personality
5. Material Handicaps to Adjuster Indwelling
6. The Persistence of True Values
7. Destiny of Personalized Adjusters

소개

사고 조율사는 우주 생애를 사는 아이이며, 정말로 무체험 **조율사**는, 필사 피조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에 반드시 체험을 획득해야 한다. 인간 아이의 인격이 진화로 실존하려고 애쓰면서 성장하듯이, **조율사**도 다음 단계로 상승하는 삶을 연습하면서 점점 성장한다. 아이가 초기 어린 시절에 사회생활과 놀이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활동에 적응할 융통성을 획득하듯이, 내주하는 **조율사**도, 모론시아 생애와 관계있는 활동을 필사자가 예비로 계획하고 연습하는 덕택으로, 다음 단계의 시공우주 생애를 위한 솜씨를 습득한다. 인간 실존은, 미래의 삶에서 증가된 책임과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조율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때의 실습기간이다. 그러나 너에게 내주할지라도, **조율사**의 노력은 현세의 삶에서, 그리고 행성에서 실존하면서 생기는 일에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오늘날 **사고 조율사**는, 인간의 진화하는 정신 속에서 우주 생애의 실체를 미리 연습하고 있다.

INTRODUCTION

109:0.1 (1195.1) THE Thought Adjusters are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career, and indeed the virgin Adjusters must gain experience while mortal creatures grow and develop. As the personality of the human child expands for the struggles of evolutionary existence, so does the Adjuster wax great in the rehearsals of the next stage of ascending life. As the child acquires adaptative versatility for his adult activities through the social and play life of early childhood, so does the indwelling Adjuster achieve skill for the next stage of cosmic life by virtue of the preliminary mortal planning and rehearsing of those activities which have to do with the morontia career. Human existence constitutes a period of practice which is effectively utilized by the Adjuster in preparing for the increased responsibilities and the greater opportunities of a future life. But the Adjuster's efforts, while living within you,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 affairs of temporal life and planetary existence. Today, the Thought Adjusters are, as it were, rehearsing the realities of the universe career in the evolving minds of human

beings.

1. 조율사의 성장

무 체험 **조율사**들이 **디비닝톤**에서 파송되기 전에 훈련과 성장을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내주 체험을 가진 **조율사**가 필사자와 연합하는 새 사명에 착수하기 전에, 다시 훈련시키는 광범한 체계가 또한 있지만, 이것 역시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관찰자가 내주했던 필사자가 생존에 실패할 때마다, 그 **조율사**가 **디비닝톤**으로 돌아갈 때, 확대된 훈련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나는 **인격화된 조율사**에게서 들었다. 이 훈련은, 인간에게 내주했던 체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며, 그 **조율사**가 진화하는 시간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주어진다.

시공우주에서 실제로 사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새롭게 형성된 **사고 조율사**의 완전한 신성은, 이 **신비 관찰자**에게, 노련하게 섬기는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도 부여하지 않는다. 체험은 살아 있는 실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아무리 신성한 계능이 많더라도, **실제 삶**으로 확고히 해야 할 필연성에서, 너희를 조금도 면제시킬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현재 영역 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조율사**들도 체험을 획득해야 하며, 체험하지 않은 낮은 집단으로부터, 더 많이 체험한 높은 집단으로 진보해야 한다.

조율사들은 필사 정신 속에서 명확하게 발전하는 생애를 체험하며; 달성한 실체를 획득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다. 특정한 필사 상대자가 생존하든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물질적 종족과 어떤 접촉을 갖든지, 그 결과로, 그들은 **조율사**로서의 솜씨와 역량을 점진적으로 획득한다. 또한 그들은, 생존할 자격이 있는 불멸의 혼이 진화하도록 촉진하는 일에, 인간 정신의 대등한 동업자다.

조율사의 진화에서 첫 단계는, 필사 존재의 생존하는 혼과 융합할 때 달성된다. 이렇게, 너희는 사실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그리고 위로 진화하는 한편, **조율사**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진화하며; 그래서 이 신성{神性}과 인간성의 합동으로 생기는 최종 산물은, 영원히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2.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

1. DEVELOPMENT OF ADJUSTERS

109:1.1 (1195.2) There must be a comprehensive and elaborate plan for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virgin Adjusters before they are sent forth from Divinington, but we really do not know very much about it. There undoubtedly also exists an extensive system for retraining Adjusters of indwelling experience before they embark upon new missions of mortal association, but, again, we do not actually know.

109:1.2 (1195.3) I have been told by Personalized Adjusters that every time a Monitor-indwelt mortal fails of survival, when the Adjuster returns to Divinington, an extended course of training is engaged in. This additional training is made possible by the experience of having indwelt a human being, and it is always imparted before the Adjuster is remanded to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109:1.3 (1195.4) Actual living experience has no cosmic substitute. The perfection of the divinity of a newly formed Thought Adjuster does not in any manner endow this Mystery Monitor with experienced ministrative ability. Experience is inseparable from a living existence; it is the one thing which no amount of divine endowment can absolve you from the necessity of securing by *actual living*. Therefore, in common with all beings living and functioning within the present sphere of the Supreme, Thought Adjusters must acquire experience; they must evolve from the lower, inexperienced, to the higher, more experienced, groups.

109:1.4 (1196.1) Adjusters pass through a definite developmental career in the mortal mind; they achieve a reality of attainment which is eternally theirs. They progressively acquire Adjuster skill and ability as a result of any and all contacts with the material races, regardless of the survival or nonsurvival of their particular mortal subjects. They are also equal partners of the human mind in fostering the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of survival capacity.

109:1.5 (1196.2) The first stage of Adjuster evolution is attained in fusion with the surviving soul of a mortal being. Thus, while you are in nature evolving inward and upward from man to God, the Adjusters are in nature evolving outward and downward from God to man; and so will the final product of this union of divinity and humanity eternally be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2. SELF-ACTING ADJUSTERS

체험과 관련해서 너희는, **조율사**들의 분류-- 곧 무체험 **조율사**, 진보된 **조율사**, 및 최상 **조율사**--를 알게 됐다. 너희는 또한, 어떤 기능적 분류--곧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도 알아야 한다.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란:

1. **조율사**를 필사 상대자에게 빌려줄 뿐인 그런 유형의 세계에, 또는 인간이 생존에 실패했던 실제 융합 행성에, 임시 거주자로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진화하는 삶에서 어떤 필수 체험을 했다. 그런 **관찰자**는 진보된 **조율사** 또는 최상 **조율사**다.

2. 셋째 심령 궤도가 이뤄지고, 또한 개인 스랍 수호자를 배정받은 한 인간 속에서, 안정된 영적 능력을 획득했다.

3. 최상의 결정을 내렸던, **조율사**와 엄숙하고 진지한 약혼 관계에 돌입했던 상대자를 가졌다. 그 **조율사**는 실제로 융합할 때를 미리 내다보며, 그 합동을 사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한다.

4. 필사자가 상승하는 진화하는 어떤 세계에서, 운명 예비 단계 가운데 하나에 소집된 한 상대자를 갖고 있다.

5. 언젠가,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 배정된 그 세계의 영적 경영과 관련된, 연락, 접수, 재등록, 또는 기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 등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 정신 속에 감금된 상태에서 잠시 분리된 적이 있다.

6. 그 행성의 영적 질서에 필수적인 어떤 시공 우주 업적을 실행할 역할이 맡겨진, 영 인격체의 육신적 보완체였던 어떤 인간의 체험에서, 위기의 때에 봉사했다.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는, 매속된 필사 상대자의 안과 밖에서 이론 많은 업적이 가리키듯이, 자신이 직접 내주하는 인간의 인격과 관련 없는 모든 면에서, 현저한 정도로 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조율사**들은 그 영역의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이 세상의 장막 {帳幕}에서,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내주하는 존재로서 더 자주 작용한다.

이와 같은 더 높고 더 많이 체험한 유형의 **조율사**는, 다른 영역에 있는 자들과 대화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한편, 오직 공동으로 일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머무는 영역의 **조율사** 사역에 필수적인 보관용{保管用} 자료를 보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위기가 닥쳤을 때 행성 간 문제에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109:2.1 (1196.3)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classification of Adjusters in relation to experience — virgin, advanced, and supreme. You should also recognize a certain functional classification — the self-acting Adjusters. A self-acting Adjuster is one who:

109:2.2 (1196.4) 1. Has had certain requisite experience in the evolving life of a will creature, either as a temporary indweller on a type of world where Adjusters are only loaned to mortal subjects or on an actual fusion planet where the human failed of survival. Such a Monitor is either an advanced or a supreme Adjuster.

109:2.3 (1196.5) 2. Has acquired the balance of spiritual power in a human who has made the third psychic circle and has had assigned to him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109:2.4 (1196.6) 3. Has a subject who has made the supreme decision, has entered into a solemn and sincere betrothal with the Adjuster. The Adjuster looks beforehand to the time of actual fusion and reckons the union as an event of fact.

109:2.5 (1196.7) 4. Has a subject who has been mustered into on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on an evolutionary world of mortal ascension.

109:2.6 (1196.8) 5. At some time, during human sleep, has been temporarily detached from the mind of mortal incarceration to perform some exploit of liaison, contact, reregistration, or other extrahuman servic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world of assignment.

109:2.7 (1196.9) 6. Has served in a time of crisis in the experience of some human being who was the material complement of a spirit personality intrusted with the enactment of some cosmic achievement essential to the spiritual economy of the planet.

109:2.8 (1196.10) Self-acting Adjusters seem to possess a marked degree of will in all matters not involving the human personalities of their immediate indwelling, as is indicated by their numerous exploits both within and without the mortal subjects of attachment. Such Adjusters participate in numerous activities of the realm, but more frequently they function as undetected indwellers of the earthly tabernacles of their own choosing.

109:2.9 (1196.11) Undoubtedly these higher and more experienced types of Adjusters can communicate with those in other realms. But while self-acting Adjusters do thus intercommunicate, they do so only on the levels of their mutual work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ustodial data essential to the Adjuster ministry of the realms of their sojourn, though on occasions they have been known to function in interplanetary matters during times of crisis.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 **조율사**는 인간의 육신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다. 내주하는 자는 필사 생명의 유기적 또는 생물학적 부분이 아니며; 그 위에 신성하게 얹혀있다. 원래 생명 계획에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물질로 실존하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단 그들이 내주하게 된 후에는, 자신의 필사 장막을 잠깐이라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록해야만 할 것이다.

초월 행동을 하는 **조율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완수했고, 오직 물질적 생명 운반체가 분해되거나, 그 불멸의 혼이 옮겨지기만을 기다리는 자다.

3. 조율사와 필사자 유형의 관계

신비 관찰자들이 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특성,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락하는 조율사**인가 또는 **융합하는 조율사**인가 아닌가에 달렸다. 어떤 **조율사**들은 다만 자신의 상대자에게 일시적 생애 동안만 대여되며; 다른 **조율사**들은 자신의 상대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영존하는 융합을 하도록 허락된, 인격 후보자로서 증여된다. 또한 그들의 활동에는, 다른 체계 및 우주들 뿐 아니라 다른 행성 유형들 가운데서도 차이가 약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의 활동은 놀랄 만큼 한결같으며, 어떤 창조된 계층의 천상(天上) 존재들이 맡는 임무보다 더 한결같다.

(제1 계열 집단의) 어떤 원시 세계에서, **조율사**는 체험 훈련으로서, 주로 자아 수양과 진보 발전을 위해 피조물 정신에 내주한다. 무체험 **조율사**는, 대개 원시인이 선택의 골짜기에 도달하는 초기 시대 동안 그런 세계에 보냄 받지만, 그때 비교적 적은 숫자만이, 더 높은 수준의 솟아나는 영성(靈性) 달성을 위하여 자아를 지배하고 성품을 획득하는 언덕을 넘어서, 도덕적 산봉우리까지 올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어쨌든, **조율사**와 융합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영과** 융합되어, 상승하는 존재로서 살아남는다.) **조율사**는 원시 정신과 일시적으로 연합하면서, 가치 있는 훈련을 받고 멋진 체험을 획득하며, 다른 세계의 더 높은 존재들을 위하여 이 체험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온 우주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제2 계열 집단의) 또 다른 유형의 세계에서는, **조율사**들이 필사 존재에게 단순히 대여된다. 여기서는 **관찰자**들이 그런 내주를 통해서 인격 융합을 획득할 수 없지만, 필사자의 생애 동안에,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인간 상대자에게 도움을 준다. **조율**

109:2.10 (1197.1) Supreme and self-acting Adjusters can leave the human body at will. The indwellers are not an organic or biologic part of mortal life; they are divine superimpositions thereon. In the original life plans they were provided for, but they are not indispensable to material existence. Nevertheless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y very rarely, even temporarily, leave their mortal tabernacles after they once take up their indwelling.

109:2.11 (1197.2) The superacting Adjusters are those who have achieved the conquest of their intrusted tasks and only await the dissolution of the material-life vehicle or the translation of the immortal soul.

3. RELATION OF ADJUSTERS TO MORTAL TYPES

109:3.1 (1197.3) The character of the detailed work of Mystery Monitors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ir assignments, as to whether or not they are *liaison* or *fusion* Adjusters. Some Adjusters are merely loaned for the temporal lifetimes of their subjects; others are bestowed as personality candidates with permission for everlasting fusion if their subjects survive. There is also a slight variation in their work among the different planetary types as well as in different systems and universes. But, on the whole, their labors are remarkably uniform, more so than are the duties of any of the created orders of celestial beings.

109:3.2 (1197.4) On certain primitive worlds (the series one group) the Adjuster indwells the mind of the creature as an experiential training, chiefly for self-culture and progressive development. Virgin Adjusters are usually sent to such worlds during the earlier times when primitive men are arriving in the valley of decision, but when comparatively few will elect to ascend the moral heights beyond the hills of self-mastery and character acquirement to attain the higher levels of emerging spirituality. (Many, however, who fail of Adjuster fusion do survive as Spirit-fused ascenders.) The Adjusters receive valuable training and acquire wonderful experience in transient association with primitive minds, and they are able subsequently to utilize this experience for the benefit of superior beings on other worlds. *Nothing of survival value is ever lost in all the wide universe.*

109:3.3 (1197.5) On another type of world (the series two group) the Adjusters are merely loaned to mortal beings. Here the Monitors can never attain fusion personality through such indwelling, but they do afford great help to their human subjects during the mortal lifetime, far more than they are able to give to Urantia mortals. The Adjusters are here

사들은 여기서 더 높은 영적 달성을 위한 원형{原型}으로서, 생존하는 성품을 완성시키는 흥미로운 과제에 임시 협조자로서, 짧은 단 한 번의 생애 동안 필사 피조물에게 대여된다. 그 **조율사**들은 자연사{自然死} 후에도 돌아가지 않으며; 생존하는 이 필사자들은, **영 융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제3 계열 집단의) **유란시아**같은 세계에서는, 신성한 선물과 실제로 약혼하는 관계, 즉 삶과 죽음을 정하는 계약이 있다. 너희가 생존하면, 영원한 합동, 즉 사람과 **조율사**가 하나의 존재로 되는 영구적 융합이 있게 된다.

이 계열의 세계에서 삼분{三分}된 _뇌를 가진 필사자의 경우에, **조율사**들은, 하나의 _뇌 그리고 이분{二分}된 _뇌 유형보다 현세의 생애 동안 훨씬 많은 실제 접촉을 상대자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생애에서는, 삼분된 _뇌 유형도 하나의 _뇌 유형이나 이분된 _뇌 유형과--곧 **유란시아** 인종들과-- 똑같이 진행한다.

이분된 _뇌 세계들에서는, 증여되는 **낙원 아들**이 머문 후에, 의심할 여지없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체험 **조율사**가 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믿기로, 그런 세계에서 생존 수용력을 가진 총명한 남녀에게 내주하는 모든 **조율사**는, 실제로 진보된 유형 또는 최상의 유형에 속한다.

유란시아의 초기 진화 인종 가운데 많은 경우에 세 가지 집단의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너무 동물에 가까워서 **조율사**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조율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즉시 **조율사**를 받는 자들도 있었다. 셋째 부류는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조율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갖췄으나, 각자 몸소 청원해야만 **관찰자**들이 그 정신에 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적당하고 열등한 조상의 영향 때문에 상속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생존할 자격을 잃어버린 자의 경우에, 많은 무체험 **조율사**는, 진화 정신과 접촉하면서 값진 예비 체험을 가졌고, 그리하여 어떤 다른 세계에서 더 높은 유형의 정신에게 나중에 배정될 수 있는, 더 나은 자격을 갖췄다.

4. 조율사와 인간 인격

내주하는 **조율사**는, 인간들 사이에서 높은 형태의 지성적 상호_연락에 많은 도움을 준다. 동물도 동료의 느낌을 갖지만, 서로 개념을 전달하지는 않으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 관념이나 이상{理想}은 표현하지 못한다. 동물에서 기원된 사람도, **사교 조율사**가 증여되기 전에는, 동료들과

loaned to the mortal creatures for a single life span as patterns for their higher spiritual attainment, temporary helpers in the intriguing task of perfecting a survival character. The Adjusters do not return after natural death; these surviving mortals attain eternal life through Spirit fusion.

109:3.4 (1197.6) On worlds such as Urantia (the series three group) there is a real betrothal with the divine gifts, a life and death engagement. If you survive, there is to be an eternal union, an everlasting fusion, the making of man and Adjuster one being.

109:3.5 (1197.7) In the three-brained mortals of this series of worlds, the Adjusters are able to gain far more actual contact with their subjects during the temporal life than in the one- and two-brained types. But in the career after death, the three-brained type proceed just as do the one-brained type and the two-brained peoples — the Urantia races.

109:3.6 (1198.1) On the two-brain worlds, subsequent to the sojourn of a Paradise bestowal Son, virgin Adjusters are seldom assigned to persons who have unquestioned capacity for survival. It is our belief that on such worlds practically all Adjusters indwelling intelligent men and women of survival capacity belong to the advanced or to the supreme type.

109:3.7 (1198.2) In many of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three groups of beings existed. There were those who were so animalistic that they were utterly lacking in Adjuster capacity. There were those who exhibited undoubted capacity for Adjusters and promptly received them when the age of moral responsibility was attained. There was a third class who occupied a borderline position; they had capacity for Adjuster reception, but the Monitors could only indwell the mind on the personal petition of the individual.

109:3.8 (1198.3) But with those beings who are virtually disqualified for survival by disinheritance through the agency of unfit and inferior ancestors, many a virgin Adjuster has served a valuable preliminary experience in contacting evolutionary mind and thus has become better qualified for a subsequent assignment to a higher type of mind on some other world.

4. ADJUSTERS AND HUMAN PERSONALITY

109:4.1 (1198.4) The higher forms of intelligent inter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are greatly helped by the indwelling Adjusters. Animals do have fellow feelings, but they do not communicate concepts to each other; they can express emotions but not ideas and ideals. Neither

높은 유형의 지적 교제나 영적 교류를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말하기를 개발할 때, 그런 진화 피조물은 **조율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탄한 길을 밟고 있다.

동물은 서로 미숙한 방법으로 대화하지만, 그런 원시적 접촉에는 인격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조율사**는 인격체가 아니며; 인격이전 존재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의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현존함으로 인간 인격의 질적{質的} 표현이 증대되며; **조율사**가 이전의 체험을 지녔다면, 특히 이것이 참말이다.

조율사의 유형은, 인간 인격의 표현 잠재력과 크게 상관이 있다. 오랜 시절 동안, **유란시아**에서 많은 위대한 지적 및 영적 지도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그들에게 내주했던 **조율사**의 우수성과, 이전{以前} 체험 때문이었다.

내주하는 **조율사**들은, 고대의 원시인 자손을 인간화시키고 변모시키는 데 다른 영적 영향과 적지 않게 협동해 왔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자들의 정신에 내주하던 **조율사**가 모두 떠나게 된다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다시 원시 시대 사람의 모습과 풍습으로 서서히 돌아갈 것이며; 신성한 **관찰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진정한 잠재력 가운데 하나다.

나는 **유란시아**에서 어느 정신에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를 관찰한 적이 있는데, **우버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르본톤**에서 전에 열다섯 명의 정신에 내주했었다. 우리는 이 **관찰자**가 다른 연방우주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추정한다. 이 **조율사**는 불가사의한 존재였으며, 현재 이 시대 동안에 **유란시아**에서 가장 유용하고 유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다. 다른 이들이 생존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것을, 이 인간이 (그리고 너희 세계 전체가) 지금 쟁취한다. 체험된 **조율사**를 지금 갖고 있는 자라도, 생존할 자질이 그에게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를 뺏기게 돼있으며, 한편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는, 게을러서 포기한 자가 가졌던, 앞서_체험한 **조율사**까지도 주어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조율사**들이,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영역에서 행성의 상호간 교류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행성에서 두 번 내주 체험이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 세상에 전에 왔던 **조율사**가 **유란시아**에서 지금 다시 일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은, **우버사**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그들의 번호와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do men of animal origin experience a high type of intellectual intercourse or spiritual communion with their fellows until the Thought Adjusters have been bestowed, albeit, when such evolutionary creatures develop speech, they are on the highroad to receiving Adjusters.

109:4.2 (1198.5) Animals do, in a crude w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there is little or no *personality* in such primitive contac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y; they are prepersonal beings. But they do hail from the source of personality, and their presence does augment the qualitative manifestations of human personality; especially is this true if the Adjuster has had previous experience.

109:4.3 (1198.6) The type of Adjuster has much to do with the potential for expression of the human personality. On down through the ages, many of the great intellectual and spiritual leaders of Urantia have exerted their influence chiefly because of the superiority and previous experience of their indwelling Adjusters.

109:4.4 (1198.7) The indwelling Adjusters have in no small measure co-operated with other spiritual influences in transforming and humanizing the descendants of the primitive men of olden ages. If the Adjusters indwelling the minds of the inhabitants of Urantia were to be withdrawn, the world would slowly return to many of the scenes and practices of the men of primitive times; the divine Monitors are one of the real potentials of advancing civilization.

109:4.5 (1198.8) I have observed a Thought Adjuster indwelling a mind on Urantia who has, according to the records on Uversa, indwelt fifteen minds previously in Orvonton. We do not know whether this Monitor has had similar experiences in other superuniverses, but I suspect so. This is a marvelous Adjuster and one of the most useful and potent forces on Urantia during this present age. What others have lost, in that they refused to survive, this human being (and your whole world) now gains. From him who has not survival qualities,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experienced Adjuster which he now has, while to him who has survival prospects, shall be given even the pre-experienced Adjuster of a slothful deserter.

109:4.6 (1199.1) In a sense the Adjusters may be fostering a certain degree of planetary cross-fertilization in the domai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But they are seldom given two indwelling experiences on the same planet; there is no Adjuster now serving on Urantia who has been on this world previously. I know whereof I speak since we have their numbers and records in the archives of Uversa.

5. 조율사의 내주에 대한 물질적 장애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 **조율사**들은 종종, 해방됐으나 통제되는 창조적 상상력의 경로에서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소들을 그 정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리고 때로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조율사**가,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념의 진행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초월 의식이 있는 높은 심중 {心中}에 깊은 영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이처럼 정신의 세력 및 에너지가, 현재와 장래의 영적 수준에서 접촉하는 어조{語調}에 더 온전하게 맞춰진다.

정신에 빛을 비추는 것, 즉 네 안에 끊임없이 내주하는 잠재 인격체의 지혜, 진리, 선함, 및 아름다움을 네가 부분적으로나마 의식할 수 있도록, 네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이 때때로 가능하다.

그러나 불안정하고 빠르게 바뀌는 너희의 정신 태도 때문에, **조율사**들의 업무가 종종 방해받고 계획이 해방된다. **조율사**들의 일은, 필사자 종족들의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간섭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역은 너희 자신의 선입견, 고정된 관념, 그리고 오래 계속된 편견으로 인해서도 매우 많이 지연된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오직 **조율사**들의 미완성 작품만이 의식 속으로 여러 번 떠오르며, 개념상 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신의 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때, 모든 체험과 생각 하나하나가 무엇이 될 뻔 했는지를 전혀 무시하면서, 바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민하게 인식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성향을, **신비 관찰자**의 신성한 현존이 시작한 영적 충동의 요구에 맞추는 일이다. 우주와 연방우주의 생애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란시아**에서 네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는, 누구나 할 수 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계속해서 현세에 타협하는 기술에 반드시 숙달돼야 하고, 한편 오직 한 주인에게 영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틀거리고 실패하는지, 점점 더 피로하고 진화 갈등의 긴장감에 굴복하는지, 그 이유다.

대뇌{大腦}의 재능이라는 유전적 유산과, 전기화학적 전면통제하는 유전적 유산, 이 두 가지는 효과적인 **조율사** 활동을 제한하도록 작용하지만, (정상적 정신에서는) 어떤 유전적 장애도, 종족의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인격체가 획득하는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유전은 상승하는 모형을 종족에 완성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네가 **조율사**와 협동한다면, 그 신성한 선물

5. MATERIAL HANDICAPS TO ADJUSTER INDWELLING

109:5.1 (1199.2) Supreme and self-acting Adjusters are often able to contribute factors of spiritual import to the human mind when it flows freely in the liberated but controlled channels of creative imagination. At such times, and sometimes during sleep, the Adjuster is able to arrest the mental currents, to stay the flow, and then to divert the idea procession; and all this is done in order to effect deep spiritual transformations in the higher recesses of the superconsciousness. Thus are the forces and energies of mind more fully adjusted to the key of the contactual tones of the spiritual level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109:5.2 (1199.3) It is sometimes possible to have the mind illuminated, to hear the divine voice that continually speaks within you, so that you may become partially conscious of the wisdom, truth, goodness, and beauty of the potential personality constantly indwelling you.

109:5.3 (1199.4) But your unsteady and rapidly shifting mental attitudes often result in thwarting the plans and interrupting the work of the Adjusters. Their work is not only interfered with by the innate natures of the mortal races, but this ministry is also greatly retarded by your own preconceived opinions, settled ideas, and long-standing prejudices. Because of these handicaps, many times only their unfinished creations emerge into consciousness, and confusion of concept is inevitable. Therefore, in scrutinizing mental situations, safety lies only in the prompt recognition of each and every thought and experience for just what it actually and fundamentally is, disregarding entirely what it might have been.

109:5.4 (1199.5) The great problem of life is the adjustment of the ancestral tendencies of living to the demands of the spiritual urges initiated by the divine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 While in the universe and superuniverse career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in the life you now live on Urantia every man must perform serve two masters. He must become adept in the art of a continuous human temporal compromise while he yields spiritual allegiance to but one master; and this is why so many falter and fail, grow weary and succumb to the stress of the evolutionary struggle.

109:5.5 (1199.6) While the hereditary legacy of cerebral endowment and that of electrochemical overcontrol both operate to delimit the sphere of efficient Adjuster activity, no hereditary handicap (in normal minds) ever prevents eventual spiritual achievement. Heredity may interfere with the rate of personality conquest, but it does not prevent eventual consummation of the ascendant

은 조만간에 불멸의 모론시아 혼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 융합이 있는 후에, 그 새 피조물을 지방우주의 주권자인 **으뜸 아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낙원**에 계신 **조울사**들의 **아버지**께 나타낼 것이다.

6. 참된 가치의 영속

조울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생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의미를 발견하거나 평가하는 인격체가 생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 속의 중요한 모든 가치는 확실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필사 피조물은 생존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래도 생애의 체험은 낭비되지 않으며; 영원한 **조울사**는 그런 외견상 실패한 생애의 가치 있는 특색을 어떤 다른 세계로 가져가서, 생존 수용력이 있는 더 높은 유형의 어떤 필사 정신에게, 이 살아남은 의미와 가치를 증여한다. 가치 있는 체험은 결코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진정한 의미나 실제 가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융합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신비 관찰자**가 동료 필사자에게 버림받고, 그 인간 동반자가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자연사로 인해 (또는 그 전에) 해방될 때, **조울사**는 생존하지 못하는 그 피조물의 정신 속에서 진화해 온, 생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어지는 인간 상대자들이 생존하지 못해서, **조울사**가 융합 인격 달성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이 **관찰자**가 나중에 인격화 된다면, 이 필사 정신들에게 내주했던, 그리고 그 정신을 통달하면서 획득한 모든 체험은, 그런 새롭게 **인격화된 조울사**의 실제 소유물, 즉 장래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계층의 **인격화된 조울사**는, 모든 예전 피조물 주인의 살아남은 특징을 전부 혼합해서 조립한 것이다.

오랜 우주 체험을 가진 **조울사**는, 증여 사명을 수행중인 신성한 **아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자원할 때, 이 봉사를 통해서 인격 달성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이 지원자에게 종종 인격을 수여하며, 그들 부류의 지휘자로 세우신다. 이들은 **디바닝톤**에서 영화롭게 권위를 받은 인격체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본성은, 필사자에게 여러 번 내주한 체험을 모자이크식으로 인간성을 구현한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내주하는 체험을 하려고 증여되는 **낙원 아들**의 인간적 신성(神性)을 가리키는 영 이력서다.

너희 지방우주에서 **조울사**들의 활동은 **네바돈 미가엘**의 **인격화된 조울사**의 지휘를 받는데, 바로 그 **관찰자**는 **미가엘**이 **요셉**의 아들 **예수**의

adventure. If you will co-operate with your Adjuster, the divine gift will, sooner or later, evolve the immortal morontia soul and, subsequent to fusion therewith, will present the new creature to the sovereign Master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eventually to the Father of Adjusters on Paradise.

6. THE PERSISTENCE OF TRUE VALUES

109:6.1 (1200.1) Adjusters never fail; nothing worth surviving is ever lost; every meaningful value in every will creature is certain of survival, irrespective of the survival or nonsurvival of the meaning-discovering or evaluating personality. And so it is, a mortal creature may reject survival; still the life experience is not wasted; the eternal Adjuster carries the worth-while features of such an apparent life of failure over into some other world and there bestows these surviving meanings and values upon some higher type of mortal mind, one of survival capacity. No worth-while experience ever happens in vain; no true meaning or real value ever perishes.

109:6.2 (1200.2) As related to fusion candidates, if a Mystery Monitor is deserted by the mortal associate, if the human partner declines to pursue the ascending career, when released by natural death (or prior thereto), the Adjuster carries away everything of survival value which has evolved in the mind of that nonsurviving creature. If an Adjuster should repeatedly fail to attain fusion personality because of the nonsurvival of successive human subjects, and if this Monitor should subsequently be personalized, all the acquired experience of having indwelt and mastered all these mortal minds would become the actual possession of such a newly Personalized Adjuster, an endowment to be enjoyed and utilized throughout all future ages. A Personalized Adjuster of this order is a composite assembly of all the survival traits of all his former creature hosts.

109:6.3 (1200.3) When Adjusters of long universe experience volunteer to indwell divine Sons on bestowal missions, they full well know that personality attainment can never be achieved through this service. But often does the Father of spirits grant personality to these volunteers and establish them as directors of their kind. These are the personalities honored with authority on Divinington. And their unique natures embody the mosaic humanity of their multiple experiences of mortal indwelling and also the spirit transcript of the human divinity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e terminal indwelling experience.

109:6.4 (1200.4) The activities of Adjusters in your local universe are directed by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Michael of Nebadon, that very Monitor who guided him step by step when he lived his

육신 속에서 인간 생애를 살았을 때,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했다. 이 비범한 **조울사**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충실했고, 이 용맹스런 **관찰자**는 현명하게 인간 본성을 지휘했는데,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때, 그 **낙원 아들**의 필사 정신을 항상 안내했다. 이 **조울사**는, 이전에 **아브라함** 때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고, 이렇게 내주하기 전에, 그리고 이 두 증여 체험 사이에, 엄청난 공훈을 세우는 일에 종사했다.

이 **조울사**는 **예수**의 인간 정신 속에서 참으로 승리했다--이것은 인생에서 거듭되는 상황 하나하나에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뤄지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뜻에 전념하는 헌신을 계속 유지했던 그 정신이었다. 그런 확고한 헌신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성을 달성하는 결말에 이르는 확실한 통행증에 해당한다.

바로 이 **조울사**는, 자신의 강력한 인격의 불가사의한 본성 속에, **요셉**의 아들 **예수**의 세례받기 이전의 인간성을 지금 나타내는데, 그 인간성은, 전체 **유란시아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가, 필사자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완전히 소모되기까지 살았던, 그 평범한 인생의 비천한 환경으로부터 창조한, 영원하고 생생한 가치를 담은 영원하고 살아 있는 증명서다.

조울사에게 위임된 영원한 가치를 갖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생존이 보장된다. 어떤 경우에는, 장차 내주할 필사 정신 속에 증여하려고 **관찰자**가 이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경우에는, 인격화됨에 따라서, 살아남아 보존되는 이 실체들이 **총괄우주**의 **설계자**들을 섬길 때 장차 쓰려고 보관돼 있다.

7. 인격화된 조울사의 운명

조울사가 아닌 **아버지** 단편들이 인격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인격이 **만유의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로 증여된 것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버지**의 단편 가운데 **조울사** 유형은, 오직 개인 존재에 대한 봉사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 속성을 습득함으로써만 인격을 획득한다. 이 **인격화된 조울사**들은 **디비닝톤**에서 지내고, 거기서 인격이전의 동역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인격화된 사고 조울사는, 광범한 온갖 우주에서, 속박 받지 않고, 배정되지 않고 통치하는, 안정시키고 보상하는 존재다. 그들은 **창조주**의 체험과 피조물의 체험을--곧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 결합시킨다. 그들은 시간과 영원이 결합된 존재다. 그들은 우주 경영에서 인격이전 존재와 인격있는 존재를 연합시킨다.

human life in the flesh of Joshua ben Joseph. Faithful to his trust was this extraordinary Adjuster, and wisely did this valiant Monitor direct the human nature, ever guiding the mortal mind of the Paradise Son in the choosing of the path of the Father's perfect will. This Adjuster had previously served with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days of Abraham and had engaged in tremendous exploits both previous to this indwelling and between these bestowal experiences.

109:6.5 (1200.5) This Adjuster did indeed triumph in Jesus' human mind — that mind which in each of life's recurring situations maintained a consecrated dedication to the Father's will, saying,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Such decisive consecration constitutes the true passport from the limitations of human nature to the finality of divine attainment.

109:6.6 (1200.6) This same Adjuster now reflects in the inscrutable nature of his mighty personality the prebaptismal humanity of Joshua ben Joseph, the eternal and living transcript of the eternal and living values which the greatest of all Urantians created out of the humble circumstances of a commonplace life as it was lived to the complete exhaustion of the spiritual values attainable in mortal experience.

109:6.7 (1201.1) Everything of permanent value which is intrusted to an Adjuster is assured eternal survival. In certain instances the Monitor holds these possessions for bestowal on a mortal mind of future indwelling; in others, and upon personalization, these surviving and conserved realities are held in trust for future utilization in the servi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7. DESTINY OF PERSONALIZED ADJUSTERS

109:7.1 (1201.2) We cannot state whether or not non-Adjuster Father fragments are personalizable, but you have been informed that personality is the sovereign freewill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As far as we know, the Adjuster type of Father fragment attains personality only by the acquirement of personal attributes through service-ministry to a personal being. These Personalized Adjusters are at home on Divinington, where they instruct and direct their prepersonal associates.

109:7.2 (1201.3)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the untrammelled, unassigned, and sovereign stabilizers and compensators of the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They combine the Creator and creature experience —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They are conjoint time and eternity beings. They associate the prepersonal and the personal in universe administration.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온전히 지혜롭고 강력한 행정관이다.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역을--곧 인격있는, 인격 이전의, 그리고 인격을 초월하는 사역을-- 친히 베푸는 대행자다. 그들은 **궁극자 하나님**의 영토에 속하는 초월 유한절대 구체들의 모든 영역에 두루,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범한 것, 진기한 것, 및 예기치 않은 것을 몸소 베푸는 사역자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인격 관계를 자신의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우주들에서 독자적인 존재이며; 전{全}인격자다--인격 이전, 인격, 및 인격 이후의 존재다. 그들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서 한 것처럼,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을 보살핀다.

아버지께서는 무한자 및 절대자와 비슷한 실존적 인격을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하셨지만, 실존적인 인격이전 **조율사**에게 증여된, **인격화된 조율사** 유형의 체험적 인격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기로 선택하셨으며;그럼으로써 그 두 분은, **궁극자**, **최상급 궁극자**, 심지어 **최상급 절대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유한절대 영역에서 초월적 사역을 베푸는, 미래에 영원한 초월 인격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우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과 가끔 상의하며, 때로는 칠중{七重}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보론다덱** 통치자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성좌{星座} 본부 세계에 오기도 한다.

유란시아에 있는 **보론다덱** 행성 참관인이--곧 너희 세계의 비상대책 섭정{攝政} 역할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지고자** 관리인이, 주둔하는 통치 우두머리 앞에서 자기 권위를 나타냈을 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전체 참모진과 함께 **유란시아**에 대한 비상{非常} 경영을 시작했다. 그는 즉시 모든 동역자와 보좌관들에게 행성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섭정 역할을 맡는 순간에 자기 앞에 나왔던 세 분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택하지 않았다. 이전의 섭정기간에 그들의 신성한 현존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섭정을 맡은 **지고자**는, 이 자원하는 **인격화된 조율사**들에게 어떤 근무를 지정하거나 임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세 분의 전{全}인격적 존재는,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계층에 속했다.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수많은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을 위해 넓은 범위에서 이바지하지만, 이

109:7.3 (1201.4) Personalized Adjusters are the all-wise and powerful executive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the personal agents of the full ministry of the Universal Father — personal,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They are the personal ministers of the extraordinary, the unusual, and the unexpected throughout all the realms of the transcendental absonite spheres of the domain of God the Ultimate, even to the levels of God the Absolute.

109:7.4 (1201.5) They are the exclusive beings of the universes who embrace within their being all the known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they are omnipersonal — they are before personality, they are personality, and they are after personality. They minister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s in the eternal past, the eternal present, and the eternal future.

109:7.5 (1201.6) Existential personality on the order of the infinite and absolute, the Father bestowed upon the Eternal Son, but he chose to reserve for his own ministry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the typ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bestowed upon the existential prepersonal Adjuster; and they are thus both destined to the future eternal superpersonality of the transcendental ministry of the absonite realms of the Ultimate, the Supreme-Ultimate, even to the levels of the Ultimate-Absolute.

109:7.6 (1201.7) Seldom are the Personalized Adjusters seen at large in the universes. Occasionally they consult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sometimes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sevenfold Creator Sons come to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constellations to confer with the Vorondadek rulers.

109:7.7 (1201.8) When the planetary Vorondadek observer of Urantia — the Most High custodian who not long since assumed an emergency regency of your world — asserted his authority in the presence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he began his emergency administration of Urantia with a full staff of his own choosing. He immediately assigned to all his associates and assistants their planetary duties. But he did not choose the three Personalized Adjusters who appeared in his presence the instant he assumed the regency. He did not even know they would thus appear, for they did not so manifest their divine presence at the time of a previous regency. And the Most High regent did not assign service or designate duties for these volunteer Personalized Adjusters. Nevertheless, these three omnipersonal beings were among the most active of the numerous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n serving on Urantia.

109:7.8 (1202.1) Personalized Adjusters perform a wide range of services for numerous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but we are not permitted to

사역에 대해서 **조울사**가_내주했던 진화하는 피조물과 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금지돼 있다. 이 비범한 인간 신{神}들은, 광우주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격체들에 속하며, 누구도 감히 그들의 장차 사명이 어떨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한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discuss these ministries with Adjuster-indwelt evolutionary creatures. These extraordinary human divinities are among the most remarkable personalities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and no one dares to predict what their future missions may be.

109:7.9 (1202.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110편. 조율사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 109

유란시아 책

111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0편

조율사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섹션

소개

1. 필사 정신에 내주함
2. 조율사와 인간 의지
3. 조율사와 협동함
4. 정신 속에서 조율사가 하는 일
5. 조율사의 인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6. 일곱 심령 계도
7. 불멸성의 달성

PAPER 110

RELATION OF ADJUSTERS TO
INDIVIDUAL MORTALS

SECTIONS

Introduction

1. Indwelling the Mortal Mind
2. Adjusters and Human Will
3. Co-operation with the Adjuster
4. The Adjuster's Work in the Mind
5. Erroneous Concepts of Adjuster Guidance
6. The Seven Psychic Circles
7. The Attainment of Immortality

소개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데는 비극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충실한 동무로서 이런 고통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애정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 완전한 조상 **신격**의 본성이다.

우주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조 조율사**의 사랑과 헌신이 모든 창조에서 참으로 가장 신성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들**들이 여러 종족에게 베푸는 사역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고귀하지만, 개인에 대한 **조율사**의 헌신은 감동적으로 숭고하고, 신성하게 **아버지**를 닮았다. **낙원 아버지**는, **창조주**로서의 독특한 특권으로, 각 피조물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 형식을 명백히 예비해 두신다. 그리고 진화 행성에 속한 자녀들에게 매혹적으로 내주하는 이 비인격 실재의 경이로운 사역에 필적할 만한 것은 온갖 우주 전체에 하나도 없다.

INTRODUCTION

110:0.1 (1203.1) THE endowment of imperfect beings with freedom entails inevitable tragedy, and it is the nature of the perfect ancestral Deity to universally and affectionately share these sufferings in loving companionship.

110:0.2 (1203.2) As far as I am conversant with the affairs of a universe, I regard the love and devotion of a Thought Adjuster as the most truly divine affection in all creation. The love of the Sons in their ministry to the races is superb, but the devotion of an Adjuster to the individual is touchingly sublime, divinely Fatherlike. The Paradise Father has apparently reserved this form of personal contact with his individual creatures as an exclusive Creator prerogative. And there is nothing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exactly comparable to the marvelous ministry of these impersonal entities that so fascinatingly indwell the children of the evolutionary planets.

1. 필사 정신에 내주함

1. INDWELLING THE MORTAL MIND

조율사가 인간의 물질 뇌 속에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율사**는, 그 영역에 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의 유기적 부분이 아니다. **사고 조율사**는 단일 신체 기관의 한계 안에 존재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필사 정신에 내주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 또한 **조율사**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상대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는데, 특히 초의식(超意識) 속에서 정신과 영이 경건한 접촉을 이루는 장엄한 체험을 하는 동안에 더욱 그렇다.

진화하는 필사자 안에 사는 **조율사**들이 헌신적이고 훌륭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사자가 더 낮게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감사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조율사**들은 사람의 영적 번영을 육성하는 과제에 무척 헌신적으로 충실하다. 이 **관찰자**들은, 사람의 정신의 더 높은 국면에 효과적인 사역자이며; 인간 지능의 영적 잠재력을 현명하고 익숙하게 조종하는 자다. 하늘의 이 협조자들은, 행복한 천상의 안식처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엄청난 과제에 전념한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일꾼들은, 너희의 영구적 인생에서 신성한 진리의 승리가 장차 구현되는 일에 거룩하게 헌신한다. 그들은,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저 멀리 영원한 해변에 있는 완비된 신성한 항구를 향하도록 노력하게 안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간 정신이, 악의 모래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신중한 일꾼이다. **조율사**들은, 사랑스런 인도자,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 동안 겪는 어둡고 불확실한 미로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안내하는 자이며; 자신의 상대자가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자극하는, 참을성 있는 선생이다. 그들은 피조물 성품의 고귀한 가치를 신중히 보호하는 자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과 더 전적으로 협동하고, 그들을 더 다정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신성한 내주자(內住者)들은, 영구히 실존할 다음 단계를 위한 너희의 영적 준비에 주로 관여할지라도, 현세에 너희의 번영과 땅에서 이루는 실제 성취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너희의 건강, 행복, 및 참된 성공에 이바지하기를 기뻐한다. 그들은, 영원히 진보해 갈 너희의 미래 인생에 해롭지 않은, 행성에서 진보하는 모든 문제에서 너희가 성공하는 데 무관심하지 않다.

조율사들은, 너의 일상 활동과 너의 다양한 세부적 삶이, 너의 현세적이면서 중대한 여러 선택과 생사를 좌우하는 영적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하여 혼이 생존하고 영원히 진보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요인이 되는 바로 그 정도까지, 너의 활동과 삶에 흥미를 가지며 관심을 갖는다. **조율사**는, 순전히 현세적 번영 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너의 영원한 미래의 모든 직무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극적이다.

110:1.1 (1203.3) Adjuster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living in the material brains of human beings. They are not organic parts of the physical creatures of the realms. The Thought Adjuster may more properly be envisaged as indwelling the mortal mind of man rather than as existing within the confines of a single physical organ. And indirectly and unrecognized the Adjuster is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the human subject, especially during those sublime experiences of the worshipful contact of mind with spirit in the superconsciousness.

110:1.2 (1203.4) I wish it were possible for me to help evolving mortals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attain a fuller appreciation of the unselfish and superb work of the Adjusters living within them, who are so devoutly faithful to the task of fostering man's spiritual welfare. These Monitors are efficient ministers to the higher phases of men's minds; they are wise and experienced manipulators of the spiritual potential of the human intellect. These heavenly helpers are dedicated to the stupendous task of guiding you safely inward and upward to the celestial haven of happiness. These tireless toilers are consecrated to the future personification of the triumph of divine truth in your life everlasting. They are the watchful workers who pilot the God-conscious human mind away from the shoals of evil while expertly guiding the evolving soul of man toward the divine harbors of perfection on far-distant and eternal shores. The Adjusters are loving leaders, your safe and sure guides through the dark and uncertain mazes of your short earthly career; they are the patient teachers who so constantly urge their subjects forward in the paths of progressive perfection. They are the careful custodians of the sublime values of creature character. I wish you could love them more, co-operate with them more fully, and cherish them more affectionately.

110:1.3 (1204.1) Although the divine indwellers are chiefly concerned with your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next stage of the never-ending existence, they are also deeply interested in your temporal welfare and in your real achievements on earth. They are delighted to contribute to your health, happiness, and true prosperity. They are not indifferent to your success in all matters of planetary advancement which are not inimical to your future life of eternal progress.

110:1.4 (1204.2) Adjusters are interested in, and concerned with, your daily doings and the manifold details of your life just to the extent that these are influential in the determination of your significant temporal choices and vital spiritual decisions and, hence, are factors in the solution of your problem of soul survival and eternal progress. The Adjuster, while passive regarding purely temporal welfare, is divinely active concerning all the affairs of your

어떤 재난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든지 정신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한, **조을사**는 너와 함께 남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경이로운 선물이 땅에서 거할 장막으로서 이바지해야 하는 그 육체를, 알면서도 더럽히거나, 고의로 오염시키는 것은 얼마나 몰인정한 일인가. 모든 육신적 독약은, 물질 정신을 고상하게 하려는 **조을사**의 노력을 크게 지체시키며, 한편 두려움, 노여움, 질투심, 투기, 의심, 및 편협함 등의 정신적 독약은, 진화하는 혼의 영적 진보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해방한다.

너는 오늘날 내 **조을사**가 구애{求愛}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으며; 너의 정신과 혼에게 영원한 합동을 요구하는 신성한 영이 너에게 맡긴 책임에, 네가 충실한 것을 입증만 한다면, 모른시아로 하나 됨, 숭고한 조화, 시공우주 협조, 신성한 동조, 천상의 융합, 정체성의 끝_없는 혼합, 그리고 존재의 일치가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주 완전하고 최종적이므로, 최고로 체험한 인격체들조차, 융합 동반자들을--곧 필사적 사람과 신성한 **조을사**를-- 독립된 정체성으로 분리하거나 알아볼 수가 결코 없다.

2. 조을사와 인간 의지

사도 조을사는 인간 정신에 내주할 때, 자신이 그리고 **디비닝톤**에 있는 **인격화된 조을사**들이 결정하고 미리 정한 대로, 모범적 생애, 즉 이상적 삶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유란시아의 인격화된 조을사**의 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조을사**들은, 그의 인간 상대자가 지적 및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뚜렷하고 미리 정해진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돼있지는 않다. 너희는 모두 예정에 대한 주체{主體}이지만, 너희가 이 신성한 예정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도 조을사**의 계획표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기꺼이 영리하게 허락하는 대로, 인격의 방향설정에 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기까지, 영적 조정을 하고 정신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성한 **관찰자**들은 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임의로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조을사**는 네 인격의 주권을 존중하며; **네 뜻에 항상 복종한다**.

일하는 방법에서 그들은 불변적이고 독창적이며 완전하지만, 주인의 의지적 개성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 신성한 **관찰자**는, 어떤 인간이든지 결코 그의 의지에 거슬리면서 영성화하지 않으며; 생존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원할 때에만 **하나**

eternal future.

110:1.5 (1204.3) The Adjuster remains with you in all disaster and through every sickness which does not wholly destroy the mentality. But how unkind knowingly to defile or otherwise deliberately to pollute the physical body, which must serve as the earthly tabernacle of this marvelous gift from God. All physical poisons greatly retard the efforts of the Adjuster to exalt the material mind, while the mental poisons of fear, anger, envy, jealousy, suspicion, and intolerance likewise tremendously interfere with the spiritual progress of the evolving soul.

110:1.6 (1204.4) Today you are passing through the period of the courtship of your Adjuster; and if you only prove faithful to the trust reposed in you by the divine spirit who seeks your mind and soul in eternal union, there will eventually ensue that morontia oneness, that supernal harmony, that cosmic co-ordination, that divine attunement, that celestial fusion, that never-ending blending of identity, that oneness of being which is so perfect and final that even the most experienced personalities can never segregate or recognize as separate identities the fusion partners — mortal man and divine Adjuster.

2. ADJUSTERS AND HUMAN WILL

110:2.1 (1204.5) When Thought Adjusters indwell human minds, they bring with them the model careers, the ideal lives, as determined and foreordained by themselves and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Divinington, which have been certified by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Urantia. Thus they begin work with a definite and predetermined plan for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their human subjects, but it is not incumbent upon any human being to accept this plan. You are all subjects of predestination, but it is not foreordained that you must accept this divine predestination; you are at full liberty to reject any part or all of the Thought Adjusters' program. It is their mission to effect such mind changes and to make such spiritual adjustments as you may willingly and intelligently authorize, to the end that they may gain more influence over the personality directionization; but under no circumstances do these divine Monitors ever take advantage of you or in any way arbitrarily influence you in your choices and decisions. The Adjusters respect your sovereignty of personality; *they are always subservient to your will*.

110:2.2 (1204.6) They are persistent, ingenious, and perfect in their methods of work, but they never do violence to the volitional selfhood of their hosts. No human being will ever be spiritualized by a divine Monitor against his will; survival is a gift of the Gods which must be desired by the creatures of

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결국, **조율사**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성공적인 일을 했더라도, 네가 협동하겠다고 동의함에 따라서 변형이 성취됐는지를, 기록이 보여줄 것이며, 상승하는 생애에서 생기는 엄청난 변형의 단계를 하나하나 달성하는 동안에, 너는 **조율사**와 가까이 동반자가 됐을 것이다.

조율사는, 너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영성화 해서 영존하게 하려고 애쓴다. 어떤 천사나 **조율사**도, 인간의 사고에 직접 영향을 주려고 몰두하지 않으며; 사고는 너희에게만 있는 인격의 특권이다. **조율사**는 너희의 생각하는 과정을, 증진, 변경, 조절, 및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더 특별하고 명확하게, 그들은 생존되게 할 목적으로, 너희 생애의 영적 사본 {寫本}, 즉 자라가는 너희의 참된 자아의 모론시아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일에 전념한다.

조율사는 인간 정신의 상급{上級} 수준 영역에서 일하며, 필사자의 지능에서 생기는 모든 개념의 모론시아 복사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쓴다. 따라서 인간 정신 회로들에는, 위에 덧붙여지고 그 안에 집중하는 두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운반자**들의 원래 계획에서 진화돼 온 필사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디비닝톤**이라는 높은 구체들에서 온 불멸의 실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주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필사의 자아 역시 인격있는 자아이며; 인격을 지녔다.

너희는 인격있는 피조물로서 정신과 의지를 지녔다. **조율사**는 인격이전 피조물로서 선{先}정신과 선{先}의지를 지녔다. 네가 눈을 마주하고 보듯이 **조율사**의 정신에 전적으로 순응한다면, 너의 두 정신도 하나가 되고, 너는 **조율사**의 정신으로 보강된다. 그 후에, 이 새로운, 즉 결합된 정신의 결정을 네 의지가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집행한다면, 그 **조율사**의 인격이전 의지는 너의 결단을 통해서 인격 표명{表明}을 달성할 것이며, 그 특정한 기적이 고려되는 한, 너와 **조율사**는 하나다. 네 정신은 신성과 조율{調律}됐고, 그 **조율사**의 뜻은 인격 표명을 달성했다.

이 정체성이 실현되는 정도까지, 너는 모론시아 계층의 실존에 정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모론시아 정신은, 다양하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본성을 지닌, 협동하는 정신들의 본질과 총합{總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모론시아 지능은 지방우주에서 하나의 뜻에 지배되는 이중{二重} 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사자의 경우에, 이것은 인간에서 기원되는 의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하고자하심에 인간 정신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그 의지는 신성하게 돼간다.

time. In the final analysis, whatever the Adjuster has succeeded in doing for you, the records will show that the transformation has been accomplished with your co-operative consent; you will have been a willing partner with the Adjuster in the attainment of every step of the tremendous transformation of the ascension career.

110:2.3 (1205.1) The Adjuster is not trying to control your thinking, as such, but rather to spiritualize it, to eternalize it. Neither angels nor Adjusters are devoted directly to influencing human thought; that is your exclusive personality prerogative. The Adjusters are dedicated to improving, modifying, adjusting, and co-ordinating your thinking processes; but more especially and specifically they are devoted to the work of building up spiritual counterparts of your careers, morontia transcripts of your true advancing selves, for survival purposes.

110:2.4 (1205.2) Adjusters work in the spheres of the higher levels of the human mind, unceasingly seeking to produce morontia duplicates of every concept of the mortal intellect. There are, therefore, two realities which impinge upon, and are centered in, the human mind circuits: one, a mortal self evolved from the original plans of the Life Carriers, the other, an immortal entity from the high spheres of Divinington, an indwelling gift from God. But the mortal self is also a personal self; it has personality.

110:2.5 (1205.3) You as a personal creature have mind and will. The Adjuster as a prepersonal creature has premind and prewill. If you so fully conform to the Adjuster's mind that you see eye to eye, then your minds become one, and you receive the reinforcement of the Adjuster's mind. Subsequently, if your will orders and enforces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s of this new or combined mind, the Adjuster's prepersonal will attains to personality expression through your decision, and as far as that particular project is concerned, you and the Adjuster are one. Your mind has attained to divinity attunement, and the Adjuster's will has achieved personality expression.

110:2.6 (1205.4) To the extent that this identity is realized, you are mentally approaching the morontia order of existence. Morontia mind is a term signifying the substance and sum total of the co-operating minds of diversely material and spiritual natures. Morontia intellect, therefore, connotes a dual mind in the local universe dominated by one will. And with mortals this is a will, human in origin, which is becoming divine through man's identification of the human mind with the mindedness of God.

3. 조율사와 협동함

3. CO-OPERATION WITH THE ADJUSTER

조율사들은 신성시되는 고귀한 경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벌이고 있으며; 공간에서 시간세계의 최고 모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영원성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일시적인 너희의 짧은 투쟁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협동하여 그들의 도움을 허용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 **조율사**가 너와 대화하려 애쓸 때, 메시지는 인간 정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물질의 흐름 속에서 분실되며; 겨우 이따금, 너는 그 메아리, 즉 신성한 음성의 희미하고 아득한 소리만 듣는다.

너의 **조율사**가 필사 인생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생존시키는 계획에서 성공하는 것은, 네가 믿는 이론보다 네 결정, 결심, 및 확고한 신앙에 달려있다. 이런 모든 인격 성장 경향은, **조율사**와 잘 협동하도록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며; 네가 저항하기를 그치도록 너를 도와준다. **사고 조율사**는, 필사자들이 완전성을 달성하려고 상승하는 통로를 따라서 나아가도록 정해진, 그 계획에 협조하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한까지만, 현세의 이행업무에서 성공하거나 외견상 실패한다. 생존하는 비결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최상의 인간 욕망에, 그리고 그 소망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는 동시에 무엇이든지 되고자 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한 **조율사**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언급할 때, 인간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율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들은 신성한 본질에 속하고, 각자 맡은 이행업무에서 항상 승리한다.

너희 중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생각을 삶의 사소한 일에 소모하는 반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더 본질적인 실체들을 거의 전적으로 간과하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성취는, 너희와 너희의 **조율사**들 사이에 더욱 조화되는 실무 협정의 진전과 관련된 다. 인간 실존의 큰 목표는, 내주하는 **조율사**의 신성에 적응하는 것이며; 필사자 인생에서 큰 성공은, 너희의 정신 속에서 기다리며 일하는 신성한 영의 영원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진실하면서 이해심 있는 헌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려는 헌신적이고 단호한 노력은, 명량하고 기쁨 넘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이 세상 생애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사고 조율사**와의 협동은, 고행, 거짓 신앙심, 또는 위선적이고 과시하는 자기 비하를 수반하지 않으며; 이상적인 인생은,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생활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생이다.

혼동, 당황함, 심지어 때로는 낙심되고 마음이 산란한 것조차, 내주하는 **조율사**의 인도에 저

110:3.1 (1205.5) Adjusters are playing the sacred and superb game of the ages; they are engaged in one of the supreme adventures of time in space. And how happy they are when your co-operation permits them to lend assistance in your short struggles of time as they continue to prosecute their larger tasks of eternity. But usually, when your Adjuster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you, the message is lost in the material currents of the energy streams of human mind; only occasionally do you catch an echo, a faint and distant echo, of the divine voice.

110:3.2 (1205.6) The success of your Adjuster in the enterprise of piloting you through the mortal life and bringing about your survival depends not so much on the theories of your beliefs as upon your decisions, determinations, and steadfast faith. All these movements of personality growth become powerful influences aiding in your advancement because they help you to co-operate with the Adjuster; they assist you in ceasing to resist. Thought Adjusters succeed or apparently fail in their terrestrial undertakings just in so far as mortals succeed or fail to co-operate with the scheme whereby they are to be advanced along the ascending path of perfection attainment. The secret of survival is wrapped up in the supreme human desire to be Godlike and in the associated willingness to do and be any and all things which are essential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at overmastering desire.

110:3.3 (1206.1) When we speak of an Adjuster's success or failure, we are speaking in terms of human survival. *Adjusters never fail*; they are of the divine essence, and they always emerge triumphant in each of their undertakings.

110:3.4 (1206.2) I cannot but observe that so many of you spend so much time and thought on mere trifles of living, while you almost wholly overlook the more essential realities of everlasting import, those very accomplishmen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more harmonious working agreement between you and your Adjusters. The great goal of human existence is to attune to the divinity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great achievement of mortal life is the attainment of a true and understanding consecration to the eternal aims of the divine spirit who waits and works within your mind. But a devoted and determined effort to realize eternal destiny is wholly compatible with a lighthearted and joyous life and with a successful and honorable career on earth. Co-oper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entail self-torture, mock piety, or hypocritical and ostentatious self-abasement; the ideal life is one of loving service rather than an existence of fearful apprehension.

110:3.5 (1206.3) Confusion, being puzzled, even sometimes discouraged and distracted, does not

항함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태도는, 때때로 거룩한 **관찰자**와 적극 협동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뜻할지 모르며, 따라서 영적 진보를 어느 정도 늦출지도 모르지만, 그런 지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혼이 확실히 생존하는 것을 조금도 해방하지 못한다. 오직 무지함 때문에 생존이 막힐 수는 결코 없으며; 혼란된 의심뿐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도 그럴 수 없다. 오직 **조율사**의 인도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것만이,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생존을 막을 수 있다.

조율사와 협동하는 것을, 특별히 의식{意識}하는 과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나 너의 동기와 결정, 충실한 결단과 최상의 소망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을 이룬다. 너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조율사**와 조화됨을 의식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1. 신성한 인도에 응답하기를 선택함;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가장 높이 의식하는 데 인간 생애의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 신성{神性}의 특성들을, 지혜, 경배, 신앙 및 사랑을 통해서 조화시킴.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람--신성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인식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경배함.

3.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섬기기를 바람--동료 필사자들 하나하나를, 충명하고 지혜롭게 사랑함과 더불어,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진심으로 인식함.

4. 시공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임--**지존 하신 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들어나는 너의 책무를 솔직히 인정함, 진화하는 인간과 진보하는 **신격**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함. 이것은 시공우주 도덕성의 탄생이요, 보편적 의무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4. 정신 속에서 조율사가 하는 일

조율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주요 회로들을 따라서 들어오는 계속된 시공우주 정보의 흐름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우주의 영 정보 및 에너지와 온전히 접촉한다. 그러나 공통된 본성이 부족하고 감응하는 인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강력한 내주자{內住者}들은 이 풍부한 지혜와 진리를 필사 상대자의 정신에게 아주 많이 전해줄 수는 없다.

사고 조율사는 너의 모른시아 혼이 진보하도록 너의 정신을 영성화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바로 너 자신은 이런 내적 사역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너 자신의 물질 지능으로 인한 결과와, 너의 혼 및 **조율사**의 공동 활동으로 인한 결과

necessarily signify resistance to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Adjuster. Such attitudes may sometimes connote lack of active co-operation with the divine Monitor and may, therefore, somewhat delay spiritual progress, but such intellectual emotional difficulties do not in the least interfere with the certain survival of the God-knowing soul. Ignorance alone can never prevent survival; neither can confusional doubts nor fearful uncertainty. Only conscious resistance to the Adjuster's leading can prevent the survival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110:3.6 (1206.4) You must not regard co-operation with your Adjuster as a particularly conscious process, for it is not; but your motives and your decisions, your faithful determinations and your supreme desires, do constitute real and effective co-operation. You can consciously augment Adjuster harmony by:

110:3.7 (1206.5) 1. Choosing to respond to divine leading; sincerely basing the human life on the highest consciousnes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then co-ordinating these qualities of divinity through wisdom, worship, faith, and love.

110:3.8 (1206.6) 2. Loving God and desiring to be like him — genuine recognition of the divine fatherhood and loving worship of the heavenly Parent.

110:3.9 (1206.7) 3. Loving man and sincerely desiring to serve him — wholehearted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coupled with an intelligent and wise affection for each of your fellow mortals.

110:3.10 (1206.8) 4. Joyful acceptance of cosmic citizenship — honest recognition of your progressive obligations to the Supreme Being, awareness of the interdependence of evolutionary man and evolving Deity. This is the birth of cosmic morality and the dawning realization of universal duty.

4. THE ADJUSTER'S WORK IN THE MIND

110:4.1 (1207.1) Adjusters are able to receive the continuous stream of cosmic intelligence coming in over the master circuits of time and space; they are in full touch with the spirit intelligence and energy of the universes. But these mighty indwellers are unable to transmit very much of this wealth of wisdom and truth to the minds of their mortal subjects because of the lack of commonness of nature and the absence of responsive recognition.

110:4.2 (1207.2) The Thought Adjuster is engaged in a constant effort so to spiritualize your mind as to evolve your morontia soul; but you yourself are mostly unconscious of this inner ministry. You are quite in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product of

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아주 없다.

사고{思考}, 결정, 그리고 정신 속의 다른 심상{心象}들이 갑자기 떠오른 것들 가운데 더러는, 때때로 **조울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한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이것들은 가라앉은 정신 수준에서, 즉 진화하는 동물적 정신의 회로들에 내재된, 정상적이고 평범한 심령 기능의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스스로를 조화시켜 오던 개념들이 갑자기 의식 속으로 솟아난 것이다. (이 잠재의식의 표출과는 대조적으로, **조울사**의 계시는 초의식{超意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모든 정신의 문제를, 메마른 의식 수준 건너편으로, **조울사**의 보호에 맡겨버려라.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펜션 세계들에서, **조울사**는 자신의 청지기_직분을 훌륭히 해낼 것이며, 보호하고 보관하라고 위탁받았던 가치와 의미를 결국 가져다줄 것이다. 너희가 생존한다면, 그들은 필사 정신에게 속한 모든 가치 있는 보화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인성과 신성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유란시아**의 인종들은 전기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너무 많이 통제되며, 일반 행태가 너무 동물적이고, 평상시 반응에서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그를 인도하고 지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너희에게 담대한 결정 능력과 헌신된 협동이 너무 결여돼서, 내주하는 **조울사**는 인간의 정신과 직접 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심지어 진보하는 필사 혼에게 새로운 진리의 섬광을 비출 가능성을 **조울사**가 발견할 때에도, 이 영적 계시는 종종 피조물의 눈을 멀게 해서, 광신적 격동{激動}에 빠지게 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색다른 지적 격변을 일으킨다. 많은 새로운 종교나 이상한 “주의{主義}”들은, **사고 조울사**와의 의사소통이 중단되고, 완성되지 못하고, 오해되고, 왜곡돼서 생겨났다.

예루셈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수천 년 동안, 스스로_행동하는 **조울사**들과,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의 숫자가, 각 세대마다 점점 줄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광경이며, **사타니아**를 감독하는 인격체들은, 너희 행성의 어떤 직속 감독관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는데, 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 가운데 높은 영적 유형들을 육성하고 보존하도록 고안된 방법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조울사의 인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조울사의 사명과 영향을, 흔히 양심이라고 불

your own material intellect from that of the conjoint activities of your soul and the Adjuster.

110:4.3 (1207.3) Certain abrupt presentations of thoughts, conclusions, and other pictures of mind are sometimes the direct or indirect work of the Adjuster; but far more often they are the sudden emergence into consciousness of ideas which have been grouping themselves together in the submerged mental levels, natural and everyday occurrences of normal and ordinary psychic function inherent in the circuits of the evolving animal mind. (In contrast with these subconscious emanations, the revelations of the Adjuster appear through the realms of the superconscious.)

110:4.4 (1207.4) Trust all matters of mind beyond the dead level of consciousness to the custody of the Adjusters. In due time, if not in this world then on the mansion worlds, they will give good account of their stewardship, and eventually will they bring forth those meanings and values intrusted to their care and keeping. They will resurrect every worthy treasure of the mortal mind if you survive.

110:4.5 (1207.5) There exists a vast gulf between the human and the divine, between man and God. The Urantia races are so largely electrically and chemically controlled, so highly animallike in their common behavior, so emotional in their ordinary reactions, that it become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onitors to guide and direct them. You are so devoid of courageous decisions and consecrated co-operation that your indwelling Adjusters find it next to impossib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human mind. Even when they do find it possible to flash a gleam of new truth to the evolving mortal soul, this spiritual revelation often so blinds the creature as to precipitate a convulsion of fanaticism or to initiate some other intellectual upheaval which results disastrously. Many a new religion and strange “ism” has arisen from the aborted, imperfect, misunderstood, and garbled communications of the Thought Adjusters.

110:4.6 (1207.6) For many thousands of years, so the records of Jerusem show, in each generation there have lived fewer and fewer beings who could function safely with self-acting Adjusters. This is an alarming picture, and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of Satania look with favor upon the proposals of some of your more immediate planetary supervisors who advocate the inauguration of measures designed to foster and conserve the higher spiritual types of the Urantia races.

5. ERRONEOUS CONCEPTS OF ADJUSTER GUIDANCE

110:5.1 (1207.7) Do not confuse and confound the

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헛갈리지 말라; 이것들은 직접 관련이 없다. 양심은 인간적이고 순전히 심령적인 반응이다. 양심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조울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양심은 옳게 행하라고 마땅히 너를 타이르지만; **조울사**는 그 외에도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를 너에게 말하려고 애쓰며; 정확히 말하면, 네가 **관찰자**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을 때 그렇다.

사람이 꿈꾸는 체험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잠자는 정신이, 혼란되고 연락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는 과정인데, 사람의 정신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조화시키고 연합시키기에 **조울사**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증거다. 다만 **조울사**는, 한번의 인생 동안에 인간 존재 및 신성한 존재로서 서로 다르고 다양한 생각의 두 유형을, 독단적으로 조화시키거나 동조시킬 수 없다. **조울사**가 그렇게 하면, 가끔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혼은 죽음의 체험을 거칠 필요 없이 맨션 세계로 직접 옮겨진다.

의식이 충분히 깨어 있는 시간에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조울사**가 내주한 인격체의 의지가 이전에 온전히 허락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월정신의 영역에 던져진 것만을, 잠자는 시기 동안에 **조울사**가 달성하려고 애쓰는데, 이 초월정신은 인간과 신이 상호관계로 접촉하는 영역이다.

조울사는, 자신의 필사자 주인이 잠든 동안에, 자신이 창작한 것을 높은 수준의 물질 정신 속에 등록하려고 애쓰며, 너희의 괴상한 꿈 중에서 어떤 것들은, **조울사**가 효과적으로 접촉을 이루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꿈속 세상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억압을 증거 할 뿐만 아니라, **조울사**가 제시한 영적 개념의 묘사가 끔찍하게 왜곡됐음을 증거한다. 바로 너의 열정, 충동, 및 타고난 기타 성향은 자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한 의식 없이 잠자는 동안에, 내주자가 심령 기록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애쓰는 신성한 메시지를, 자체의 표현되지 못한 욕구로 대치한다.

꿈속의 내용을 **조울사**가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잠자는 동안에 **조울사**가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의 일상적 꿈 체험은 순전히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조울사**가 개념을 등록하는 것과, 필사자 양심의 명령에 대해서 다소 연속적이고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둘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렵지 못하다. 이것은 개인이 식별하고 개인의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인간은, 필사정신의 반응을 신성한 존엄성의 영역으로 높이려는 큰 실수를 범하기보다는,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 체험일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조울사**의 표현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사고 조울사**의 영향은, 비록 전체적이지는 않을지라

mission and influence of the Adjuster with what is commonly called conscience;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Conscience is a human and purely psychic reaction. It is not to be despised, but it is hardly the voice of God to the soul, which indeed the Adjuster's would be if such a voice could be heard. Conscience, rightly, admonishes you to do right; but the Adjuster, in addition, endeavors to tell you what truly is right; that is, when and as you are able to perceive the Monitor's leading.

110:5.2 (1208.1) Man's dream experiences, that disordered and disconnected parade of the uncoordinated sleeping mind, present adequate proof of the failure of the Adjusters to harmonize and associate the divergent factors of the mind of man. The Adjusters simply cannot, in a single lifetime, arbitrarily co-ordinate and synchronize two such unlike and diverse types of thinking as the human and the divine. When they do, as they sometimes have, such souls are translated directly to the mansion worlds without the necessity of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death.

110:5.3 (1208.2) During the slumber season the Adjuster attempts to achieve only that which the will of the indwelt personality has previously fully approved by the decisions and choosings which were made during times of fully wakeful consciousness, and which have thereby become lodged in the realms of the supermind, the liaison domain of human and divine interrelationship.

110:5.4 (1208.3) While their mortal hosts are asleep, the Adjusters try to register their creations in the higher levels of the material mind, and some of your grotesque dreams indicate their failure to make efficient contact. The absurdities of dream life not only testify to pressure of unexpressed emotions but also bear witness to the horrible distortion of the representations of the spiritual concepts presented by the Adjusters. Your own passions, urges, and other innate tendencies translate themselves into the picture and substitute their unexpressed desires for the divine messages which the indwellers are endeavoring to put into the psychic records during unconscious sleep.

110:5.5 (1208.4) It is extremely dangerous to postulate as to the Adjuster content of the dream life. The Adjusters do work during sleep, but your ordinary dream experiences are purely physiologic and psychologic phenomena. Likewise, it is hazardous to attempt the differentiation of the Adjusters' concept registry from the more or less continuous and conscious reception of the dictations of mortal conscience. These are problems which will have to be solved through individual discrimination and personal decision. But a human being would do better to err in rejecting an Adjuster's expression through believing it to be a purely human experience than to blunder into exalting a reaction

도, 대부분이 초의식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심령 궤도들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정도로 자신의 **조율사**와 대화하게 되는데, 어떤 때에는 직접 이뤄지지만 대개 경우에는 간접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인간 정신 속에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개념이 **조율사**의 가르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너와 같은 계층의 존재에게는, 네가 **조율사**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실제로는 너 자신의 지능에서 나온 것일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위험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연스런 인간 지혜와 초인적 통찰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본 문서를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그 인간의 **조율사**는, 그런 넓은 범위의 활동을 누리는데, 이는 주로 그 **조율사**의 내적 현존이 바깥으로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인간이 거의 완전히 무관심하기 때문이며;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아주 개의치 않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그는 그가 사는 그 시대와 세대에서 무척 체험 있는 **조율사** 가운데 하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다재다능한 **조율사**가 그의 정신 속에 현존함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그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은 드물고도 다행스런 반응이라고, 그 운명 수호자가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 영향력을 알맞게 조화시켰는데, 높은 행동 영역에 있는 **조율사**에게 유익하고, 건강, 능률, 및 평온함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다.

6. 일곱 심령 궤도

물질 세계에서 인격이 실현한 것의 총합{總合}은, 필사자 잠재력인 일곱 심령 궤도를 연속해서 정복하는 데 내포돼 있다. 일곱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참된 인간 인격이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첫째 궤도의 완료는, 필사{必死} 존재가 비교적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시공우주에서 성장하는 일곱 궤도를 모두 거쳤더라도,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 궤도들의 정복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예비 단계에 도달했음을 표시한다.

일곱 궤도를 달성하는--곧 필사자가 비교적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조율사**는 너와 대등한 동반자다. **조율사**는 일곱째로부터 첫째까지 너와 함께 궤도들을 올라가지만, 필사자의 정신이 적극 협동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상의 상태와 스스로_행동하는 상태까지 진보한다.

of the mortal mind to the sphere of divine dignity. Remember, the influence of a Thought Adjuster is for the most part, though not wholly, a superconscious experience.

110:5.6 (1208.5) In varying degrees and increasingly as you ascend the psychic circles, sometimes directly, but more often indirectly, you do communicate with your Adjusters. But it is dangerous to entertain the idea that every new concept originating in the human mind is the dictation of the Adjuster. More often, in beings of your order, that which you accept as the Adjuster's voice is in reality the emanation of your own intellect. This is dangerous ground, and every human being must settle these problems for himself in accordance with his natural human wisdom and superhuman insight.

110:5.7 (1208.6) The Adjuster of the human being through whom this communication is being made enjoys such a wide scope of activity chiefly because of this human's almost complete indifference to any outward manifestations of the Adjuster's inner presence; it is indeed fortunate that he remains consciously quite unconcerned about the entire procedure. He holds one of the highly experienced Adjusters of his day and generation, and yet his passive reaction to, and inactive concern toward, the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in his mind of this versatile Adjuster is pronounced by the guardian of destiny to be a rare and fortuitous reaction. And all this constitutes a favorable co-ordination of influences, favorable both to the Adjuster in the higher sphere of action and to the human partner from the standpoints of health, efficiency, and tranquillity.

6. THE SEVEN PSYCHIC CIRCLES

110:6.1 (1209.1) The sum total of personality realization on a material world is contained within the successive conquest of the seven psychic circles of mortal potentiality. Entrance upon the seventh circle marks the beginning of true human personality function. Completion of the first circle denotes the relative maturity of the mortal being. Though the traversal of the seven circles of cosmic growth does not equal fusion with the Adjuster, the mastery of these circles marks the attainment of those steps which are preliminary to Adjuster fusion.

110:6.2 (1209.2) The Adjuster is your equal partner in the attainment of the seven circles — the achievement of comparative mortal maturity. The Adjuster ascends the circles with you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but progresses to the status of supremacy and self-activity quite independent of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mortal mind.

심령 궤도들이 오로지 지적인 것만은 아니고, 전적으로 모론시아적인 것도 아니며; 이것들은 인격 지위, 정신 달성, 혼의 성장, 그리고 **조율사**와 동조(同調)하기 등과 관계가 있다. 이런 수준들을 성공적으로 거치는 것은, 단순히 인격의 어느 한 국면이 아니라 **전체 인격**이, 조화롭게 활동하기를 요구한다. 여러 부분이 성장해도 전체의 진정한 성숙과는 다르며; 그 부분들은 참으로 전체 자아--총체적 자아--, 즉 물질적, 지적, 및 영적 자아의 확장에 비례해서 성장한다.

지적 본성 개발이 영적 본성 개발보다 빨리 앞지를 때, 그런 상황은 **사고 조율사**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고도 위험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영적 성장은, 신성한 내주자의 영 인도에 대해서 광신적이고 비뚤어진 해석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 수용력이 부족하면, 더 높은 초월 의식에 내재하는 영적 진리를 그런 물질 지능에게 전해주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결점 없는 습관, 안정된 신경 에너지, 및 균형 잡힌 화학작용을 가진 육체 속에 자리 잡은, 완전히 안정된 정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처럼 조화되어 발달했을 때-- 그런 존재의 실제 번영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빛과 진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함으로써, 사람은 일곱째로부터 첫째까지, 행성에서 진보하는 궤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조율사는 항상 네 곁에 있고 너에게 속하지만, 다른 존재로서 너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는 거의 없다. 너의 지적 결정, 도덕적 선택, 및 영적 성장은, **조율사**가 네 정신 속에서 작용하도록 매 궤도마다 역량을 덧붙여주며; 그렇게 함으로 너는, **조율사**와 연합하고 정신을 조율하는 낮은 단계로부터 한 궤도씩 올라가고, 그래서 **조율사**는, **하나님**을 찾는 이 정신_혼의 진화하는 의식 위에, 생생함과 확신감을 증대시키면서, 운명을 그림처럼 나타낸 것들을 점점 더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네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조율사**의 기능을 방해하든지 촉진시키든지 하며; 마찬가지로 바로 이 결정들은, 인간 성취의 여러 궤도에서 네가 승진하는 것을 좌우한다. 최고의 결정, 그 결정과 위기의 관계는, 각 궤도를_획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과 크게 상관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결정의 빈도, 빈번한 반복, 끊임없는 반복 또한 그런 반응을 확실히 습관으로_형성하는 데 필수다.

인간이 진보하는 일곱 수준을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이 수준들이 개인적이기 때문이며; 이 수준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외견상 인간 각자의 성장 수용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

110:6.3 (1209.3) The psychic circles are not exclusively intellectual, neither are they wholly morontial; they have to do with personality status, mind attainment, soul growth, and Adjuster attunement. The successful traversal of these levels demands the harmonious functioning of the *entire personality*, not merely of some one phase thereof. The growth of the parts does not equal the true maturation of the whole; the parts really grow in proportion to the expansion of the entire self — the whole self —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110:6.4 (1209.4) When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nature proceeds faster than that of the spiritual, such a situation renders communic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both difficult and dangerous. Likewise, overspiritual development tends to produce a fanatical and perverted interpretation of the spirit leadings of the divine indweller. Lack of spiritual capacity makes it very difficult to transmit to such a material intellect the spiritual truths resident in the higher superconsciousness. It is to the mind of perfect poise, housed in a body of clean habits, stabilized neural energies, and balanced chemical function — when th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powers are in triune harmony of development — that a maximum of light and truth can be imparted with a minimum of temporal danger or risk to the real welfare of such a being. By such a balanced growth does man ascend the circles of planetary progression one by one,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110:6.5 (1209.5) The Adjusters are always near you and of you, but rarely can they speak directly, as another being, to you. Circle by circle your intellectual decisions, moral choosings, and spiritual development add to the ability of the Adjuster to function in your mind; circle by circle you thereby ascend from the lower stages of Adjuster association and mind attunement, so that the Adjuster is increasingly enabled to register his picturizations of destiny with augmenting vividness and conviction upon the evolving consciousness of this God-seeking mind-soul.

110:6.6 (1210.1) Every decision you make either impedes or facilitates the function of the Adjuster; likewise do these very decisions determine your advancement in the circles of human achievement. It is true that the supremacy of a decision, its crisis relationship, has a great deal to do with its circle-making influence; nevertheless, numbers of decisions, frequent repetitions, persistent repetitions, are also essential to the habit-forming certainty of such reactions.

110:6.7 (1210.2) It is difficult precisely to define the seven levels of human progression, for the reason that these levels are personal; they are variable for each individual and are apparently determined by

다. 시공우주 진화에서 이런 수준을 정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으로 반영된다:

1. **조울사**에게 동조하기. 영화{靈化}된 정신은 케도 달성에 비례해서 **조울사**의 현존에 가까워진다.

2. **혼의 진화**. 모론시아 혼의 출현은 케도 정복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낸다.

3. **인격의 실체**. 자아성 실체의 등급은 케도의 정복에 따라서 직접 결정된다. 인격자는 일곱째 수준으로부터 첫째 수준의 필사자 실존으로 올라가면서 더욱 실체화 된다.

케도들을 거치면서, 물질적 진화를 겪는 자녀는 불멸의 잠재력이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란다. 일곱째 케도에 있는 자들의 발달되지 못한 본성의 희미한 실체는, 지방우주 시민의 떠오르는 모론시아 본성이 더 분명히 나타날 때 물러난다.

인간 성장의 일곱 수준, 즉 심령 케도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성숙을 실현하는 이 단계들의 최소 한계와 최대 한계를 암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일곱째 케도. 인간이 몸소 선택하고, 개인별로 결정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능력, 그리고 영적 개체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용력을 계발할 때 이 수준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혜의 기질의 지휘 아래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이 연합하여 활동함, **거룩한 영**의 영향력 안에 필사 피조물이 회로화 됨, 그리고 **유란시아**의 경우에는 필사 정신 속에 **사고 조울사**를 받아들임과 함께,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케도에 들어가는 것은, 필사 피조물이 지방우주의 진정한 잠재적 시민이 되게 한다.

셋째 케도. **조울사**의 업무는, 상승하는 인간이 셋째 케도를 획득하고 운명의 개인 스랍 수호자를 받은 후에 훨씬 효과적이다. **조울사**와 스랍 수호자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협조 노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개인 스랍 안내원이 배정된 뒤에 시공우주에서 성취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국면에서, 틀림없는 진전이 있음을 목격할 것이다. 셋째 케도가 달성될 때, **조울사**는 필사자 생애 중에서 남은 기간에 사람의 정신을 모론시아화하고, 나머지 케도들을 마치게 하려고, 그리고 자연사가 독특한 동반자_관계를 끝내기 전에, 신과_인간의 관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첫째 케도.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첫

the growth capacity of each human being. The conquest of these levels of cosmic evolution is reflected in three ways:

110:6.8 (1210.3) 1. *Adjuster attunement*. The spiritizing mind nears the Adjuster presence proportional to circle attainment.

110:6.9 (1210.4) 2. *Soul evolution*. The emergence of the morontia soul indicates the extent and depth of circle mastery.

110:6.10 (1210.5) 3. *Personality reality*. The degree of selfhood reality is directly determined by circle conquest. Persons become more real as they ascend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level of mortal existence.

110:6.11 (1210.6) As the circles are traversed, the child of material evolution is growing into the mature human of immortal potentiality. The shadowy reality of the embryonic nature of a seventh circler is giving way to the clearer manifestation of the emerging morontia nature of a local universe citizen.

110:6.12 (1210.7) While it is impossible precisely to define the seven levels, or psychic circles, of human growth, it is permissible to suggest the minimum and maximum limits of these stages of maturity realization:

110:6.13 (1210.8) *The seventh circle*. This level is entered when human beings develop the powers of personal choice, individual decision,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capacity for the attainment of spiritual individuality. This signifies the united func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spirit of wisdom, the encirclement of the mortal creature in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and, on Urantia, the first functioning of the Spirit of Truth, together with the reception of a Thought Adjuster in the mortal mind. Entrance upon the seventh circle constitutes a mortal creature a truly potential citizen of the local universe.

110:6.14 (1210.9) *The third circle*. The Adjuster's work is much more effective after the human ascender attains the third circle and receives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of destiny. While there is no apparent concert of effort between the Adjuster and the seraphic guardian, nonetheless there is to be observed an unmistakable improvement in all phases of cosmic achievement and spiritual development subsequent to the assignment of the personal seraphic attendant. When the third circle is attained, the Adjuster endeavors to morontiaize the mind of man during the remainder of the mortal life span, to make the remaining circles, and achieve the final stage of the divine-human association before natural death dissolves the unique partnership.

110:6.15 (1210.10) *The first circle*. The Adjuster cannot,

제이자 마지막 궤도에 네가 도달할 때까지, **조울사**는 평상시에 너와 직접 즉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수준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물질적 육신의 껍데기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인간의 체험에서 정신과 **조울사**의 관계가 가능한 한 최고로 실현됐음을 나타낸다. 정신, 감정, 및 시공우주 통찰력에 관해서, 이런 첫째 심령 궤도의 달성은, 인간의 체험에서 물질 정신과 영 **조울사**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아마, 필사자 진보의 이 심령 궤도들을 시공우주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이것은 진화하는 혼과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초기 관계에 대한 모론시아 의식을 얻기까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실제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를 깨닫는 수준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시공우주 궤도들의 중요성을 물질적 정신에게 완전히 설명하기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궤도의 달성은, 겨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관련될 뿐이다. 일곱째 또는 여섯째 궤도에 있는 자는, 둘째나 첫째 궤도에 있는 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곧 자녀신분을 의식함-- 거의 이를 수 있지만, 그런 낮은 궤도의 존재는, **지존하신 분**과 갖는 체험적 관계, 즉 우주 시민권을 훨씬 적게 의식한다. 이런 시공우주 궤도들의 달성은, 그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그런 성취에 실패한다면, 맨션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자가 얻을 체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신앙이 주는 자극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체험하게 하지만, 행동, 즉 결정한 것을 완성시키는, **지존하신 분**의 시공우주 **실체**와 점진적으로 유사하게 되고 있다는 의식을 진화로 얻는 데 필수다. 신앙은 영적 세계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지만, **지존자**의 유한한 영역에서는 오직 선택과 체험을 실현함으로써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선택은 인격체가 행동할 때 영적 신앙을 물질적 결정에 결합시키며, 이럼으로써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지렛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신성하고 영적인 지레 받침대를 제공한다. 물질 세력과 영적 세력이 그렇게 현명하게 협조하는 것은, 시공우주에서 **지존자**의 실현, 그리고 **낙원 신격**들에 대한 모론시아 납득을 심히 증대시킨다.

시공우주 궤도들의 정복은, 모론시아 혼의 양적 성장, 즉 최상의 목적을 납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불멸의 혼의 질적 상태는, 필사적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낙원** 잠재성의 사실 가치를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붙잡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일곱째 궤도에 있는 자는, 둘째 또는 심지어 첫째 궤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시공우주 성장의 양적 실현을 더욱 달성하기 위해서 맨션 세계로 간다.

ordinarily, speak directly and immediately with you until you attain the first and final circle of progressive mortal achievement. This level represents the highest possible realization of mind-Adjuster relationship in the human experience prior to the liberation of the evolving morontia soul from the habiliments of the material body. Concerning mind, emotions, and cosmic insight, this achievement of the first psychic circle is the nearest possible approach of material mind and spirit Adjuster in human experience.

110:6.16 (1211.1) Perhaps these psychic circles of mortal progression would be better denominated *cosmic levels* — actual meaning grasps and value realizations of progressive approach to the morontia consciousness of initial relationship of the evolutionary soul with the emerging Supreme Being. And it is this very relationship that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ully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cosmic circles to the material mind. These circle attainments are only relatively related to God-consciousness. A seventh or sixth circler can be almost as truly God-knowing — sonship conscious — as a second or first circler, but such lower circle beings are far less conscious of experiential relation to the Supreme Being, universe citizenship. The attainment of these cosmic circles will become a part of the ascenders' experience on the mansion worlds if they fail of such achievement before natural death.

110:6.17 (1211.2) The motivation of faith makes experiential the full realization of man's sonship with God, but *action*, completion of decisions, is essential to the evolutionary attainment of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kinship with the *cosmic actuality* of the Supreme Being. Faith transmutes potentials to actuals in the spiritual world, but potentials become actuals in the finite realms of the Supreme only by an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hoice-experience. But choosing to do the will of God joins spiritual faith to material decisions in personality action and thus supplies a divine and spiritual fulcrum for the mor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human and material leverage of God-hunger. Such a wise co-ordination of material and spiritual forces greatly augments both cosmic realization of the Supreme and morontia comprehension of the Paradise Deities.

110:6.18 (1211.3) The mastery of the cosmic circles is relat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morontia soul, the comprehension of supreme meanings. But the qualitative status of this immortal soul is *wholly* dependent on the grasp of living faith upon the Paradise-potential fact-value that mortal man is a son of the eternal God. Therefore does a seventh circler go on to the mansion worlds to attain further quantitative realization of cosmic growth just as does a second or even a first circler.

시공우주_궤도의 달성과 실제적인 영적 종교 체험 사이에는 간접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그런 달성은 상호적이고, 따라서 서로에게 유익하다. 순전히 영적인 발전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성공과 아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궤도의 달성은 인간이 성공하고 필사자가 성취할 가능성을 반드시 증대시킨다.

일곱째 궤도로부터 셋째 궤도까지, 모론시아 수준의 체험에 더욱 진입하는 데 대비해서, 물질 생애 심리과정의 현실에 필사 정신이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의 행동이 증가되고 통합된다. 셋째 궤도부터는 계속해서 보조체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든다.

일곱 궤도는, 가장 높은, 순전히 동물적인 수준으로부터, 인격자 체험으로써 자기를_의식하는 가장 낮은, 실제로 접촉되는 모론시아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필사자 체험을 포함한다. 첫 시공우주 궤도의 정복은, 필사자가 모론시아_이전(以前) 상태로 성숙했음을 알리며, 인간의 인격 속에서 정신 작용에 미치는 유일한 영향으로서 보조 정신_영들의 공동 사역이 끝났음을 표시한다. 첫째 궤도를 지나면, 정신은 진화의 모론시아 단계의 지성과 더욱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정신, 그리고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이 부여한, 보조체를 초월하는 재능의 연합된 사역이다.

조울사의 개별 생애에서 중대한 날은:첫째로, 인간 상대자가 셋째 심령 궤도로 뚫고 들어오고, 따라서 (내주자가 이미 스스로_행동하지 않는다면) **관찰자**가 스스로_활동하며, 작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보장할 때이며;다음은, 인간 동반자가 첫째 심령 궤도에 도달하고, 그리하여 상호 대화가 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 때이며;마지막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융합할 때다.

7. 불멸성의 달성

일곱 시공우주 궤도를 성취하는 것은, **조울사**와 융합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자신의 궤도들을 달성한 많은 필사자가 **유란시아**에 살지만;융합은, 아직 더 크고 더 탁월한 다른 영적 성취, 즉 필사자의 의지를, **사고 조울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뜻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동조시키는 것을 완성하는 데 달려 있다.

한 인간이 시공우주 성취 궤도들을 완료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사자 의지의 최종 선택이, 진화하는 육체 생애 동안에, **조울사**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과 모론시아 혼의 연합을 완결하도록 허락하면, 혼과 **조울사**의 그런 완성된 동맹은 맨션 세계들까지 독립적으로 계속되며, **조울사**와 모

110:6.19 (1211.4) There is only an indirect relation between cosmic-circle attainment and actual spiritual religious experience; such attainments are reciprocal and therefore mutually beneficial. Purely spiritual development may have little to do with planetary material prosperity, but circle attainment always augments the potential of human success and mortal achievement.

110:6.20 (1211.5) From the seventh to the third circle there occurs increased and unified ac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in the task of weaning the mortal mind from its dependence on the realities of the material life mechanisms preparatory to increased introduction to morontia levels of experience. From the third circle onward the adjutant influence progressively diminishes.

110:6.21 (1211.6) The seven circles embrace mortal experience extending from the highest purely animal level to the lowest actual contactual morontia level of self-consciousness as a personality experience. The mastery of the first cosmic circle signalizes the attainment of premorontia mortal maturity and marks the termination of the conjoint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s an exclusive influence of mind action in the human personality. Beyond the first circle, mind becomes increasingly akin to the intelligence of the morontia stage of evolution, the conjoined ministry of the cosmic mind and the superadjutant endowment of the Creative Spirit of a local universe.

110:6.22 (1212.1) The great days in the individual careers of Adjusters are: first, when the human subject breaks through into the third psychic circle, thus insuring the Monitor's self-activity and increased range of function (provided the indweller was not already self-acting); then, when the human partner attains the first psychic circle, and they are thereby enabled to intercommunicate, at least to some degree; and last, when they are finally and eternally fused.

7. THE ATTAINMENT OF IMMORTALITY

110:7.1 (1212.2) The achievement of the seven cosmic circles does not equal Adjuster fusion. There are many mortals living on Urantia who have attained their circles; but fusion depends on yet other greater and more sublime spiritual achievements, upon the attainment of a final and complete attunement of the mortal will with the will of God as it is resident in the Thought Adjuster.

110:7.2 (1212.3) When a human being has completed the circles of cosmic achievement, and further, when the final choosing of the mortal will permits the Adjuster to complete the association of human identity with the morontial soul during evolutionary and physical life, then do such consummated

론시아 혼이 즉시 융합되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이 **우버사**로부터 하달된다. 이 융합이 육신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면, 순식간에 물질 육체를 다 태워 버리며;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는 인간은 오직, 옮겨가는 그 필사자가 “불병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상대자를 옮겨간 대부분의 **조울사**는 고도로 체험한 존재였으며, 전에 다른 구체들에서 수많은 필사자에게 내주했던 것으로 기록된 존재였다. 빌려주는 계층에 속하는 행성에서, **조울사**는 값진 내주 체험을 획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생존에 실패하는 필사 상대자 안에서만 **조울사**가 고등 업무를 위하여 체험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필사자와 융합하고 나서, **조울사**는 너의 운명과 체험을 공유하며; **조울사**가 바로 너다. 불멸의 모론시아 혼, 그리고 관련된 **조울사**가 융합한 후에, 한쪽의 모든 가치와 모든 체험은 결국 다른 쪽의 소유가 되며, 결국 그 둘은 실제로 하나의 실체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 속한다. 생존하는 혼 속에서 한때 인간적이었던 모든 것, 그리고 **조울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신성한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상승하는 새로운 우주 인격체의 실제 재산이 된다. 그러나 각 우주 수준에서, **조울사**는 오직 그 수준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속성만을 그 새 피조물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성한 **관찰자**와 절대적인 **하나 됨**, 즉 **조울사**에게 주어진 재능의 완전한 소모는, 이 신성한 선물의 영원한 근원이신 **만유의 아버지**, 즉 영들의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나서 영원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진화하는 혼과 신성한 **조울사**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융합할 때, 각 존재는 상대방의 체험 가능한 특성을 전부 얻게 된다. 이 동격 인격체는, 한때 조상 필사 정신이 지녔고, 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혼에 내재하다가 살아남은 모든 체험적 기억을 소유하며, 이에 덧붙여서, 이 잠재적 완결성취자는, 필사자에게 내주했던 전체 기간 내내 **조울사**가 체험으로 얻은 모든 기억을 품는다. 그러나 신성한 **관찰자**가 과거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조울사**가 인격 동반관계에 완벽히 부여하는 데는, 미래의 영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유란시아인**의 경우에, **조울사**는 죽음으로 구원이 임하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며; 너희의 물질 실존 계층에 내재하는 에너지 원형{原型}과 화학적 힘이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로부터, 떠오르는 혼이 해방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울사**와 접촉하는 데 너희가 겪는

liaisons of soul and Adjuster go on independently to the mansion worlds, and there is issued the mandate from Uversa which provides for the immediate fusion of the Adjuster and the morontial soul. This fusion during physical life instantly consumes the material body; the human beings who might witness such a spectacle would only observe the translating mortal disappear “in chariots of fire.”

110:7.3 (1212.4) Most Adjusters who have translated their subjects from Urantia were highly experienced and of record as previous indwellers of numerous mortals on other spheres. Remember, Adjusters gain valuable indwelling experience on planets of the loan order; it does not follow that Adjusters only gain experience for advanced work in those mortal subjects who fail to survive.

110:7.4 (1212.5) Subsequent to mortal fusion the Adjusters share your destiny and experience; *they are you*. After the fusion of the immortal morontia soul and the associated Adjuster, all of the experience and all of the values of the one eventually become the possession of the other, so that the two are actually one entity. In a certain sense, this new being is of the eternal past as well as for the eternal future. All that was once human in the surviving soul and all that is experientially divine in the Adjuster now become the actual possession of the new and ever-ascending universe personality. But on each universe level the Adjuster can endow the new creature only with those attributes which are meaningful and of value on that level. An absolute *oneness* with the divine Monitor, a complete exhaustion of the endowment of an Adjuster, can only be achieved in eternity subsequent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Father of spirits, ever the source of these divine gifts.

110:7.5 (1212.6) When the evolving soul and the divine Adjuster are finally and eternally fused, each gains all of the experiential qualities of the other. This co-ordinate personality possesses all of the experiential memory of survival once held by the ancestral mortal mind and then resident in the morontia soul, and in addition thereto this potential finaliter embraces all the experiential memory of the Adjuster throughout the mortal indwellings of all time. But it will require an eternity of the future for an Adjuster ever completely to endow the personality partnership with the meanings and values which the divine Monitor carries forward from the eternity of the past.

110:7.6 (1213.1) But with the vast majority of Urantians the Adjuster must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death deliverance; must await the liberation of the emerging soul from the well-nigh complete domination of the energy patterns and chemical forces inherent in your material order of existence.

주요 어려움은, 본래부터 가진 바로 이 물질적 본성 때문이다. 극소수의 필사자만이 진정한 사색가이며; 너희는 신성한 **조율사**와 호의적으로 접촉하는 정도까지, 너희의 정신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는다.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발생되는, 사랑의 우주 방송이 전하는 다채로운 메시지로부터 **조율사**가 번역해 주는 영적 탄원이, 인간 정신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조율사**는, 너희의 물질 본성에 타고난 화학 및 전기{電氣} 세력에 아주 완전히 지배되는 동물 정신 속에, 영감을 주는 이 영의 인도를 의식하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조율사들은 필사 정신과 접촉하기를 기뻐하지만; 그들은, 동물적 저항을 돌파하여 너희와 직접 대화할 수 없어서 침묵하며 머무는 오랜 세월 내내, 인내해야 한다. 봉사의 척도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사교 조율사**는 더 유능하게 된다. 그러나 맨션 세계들에서 정신 대 정신으로 내가 **조율사**를 알아볼 때, 충만하고, 동정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너를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도 **조율사**가 그렇게 너를 영접할 수는 없다.

필사 인생 동안에는, 물질 육체와 정신이 너를 **조율사**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하며, 죽은 뒤에 영원한 융합이 이뤄진 후에는, 너와 **조율사**가 하나이며--곧 너희는 별개의 존재로 구분될 수 없으며--,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교통할 필요가 없다.

조율사의 음성은 항상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 대부분은 일생 동안에 그 음성을 듣는 일이 드물 것이다. 달성하는 궤도 중에서 셋째와 둘째 보다 아래에 있는 인간은, 최상의 소망을 가진 순간, 최상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정을 내린 결과로 생기는 경우 외에는, **조율사**가 직접 말하는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다.

운명 예비군의 필사 정신과 행성 감독관들 사이의 접촉이 이뤄졌다 끊어졌다 하는 동안에, 내주하는 **조율사**는 가끔 어떤 메세지를 필사 상대자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 최근에 **유란시아**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조율사**가 그 인간 동역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는 운명 예비 단체 회원이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제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내 상대자에게 손상이나 위험 없이, 그리고 과도한 비난이나 꾀방을 시도함 없이, 나를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기록하라." 그러자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매력적인 훈계가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그 **조율사**는 이렇게 간청했다: "진지한 협동을 더욱 충실히 내게 베풀고, 내가 부여한 과제들을 더 기쁘게 참아내고, 내가 배치한 계획표를 더 신실하게 진행하고, 내가 선택한 시험들을 더 많은 인내심으로 통과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더 변함없이 기쁘게 걷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영예를 더 겸손히 받아들이라고--내가 거주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The chief difficulty you experience in contacting with your Adjusters consists in this very inherent material nature. So few mortals are real thinkers; you do not spiritually develop and discipline your minds to the point of favorable liaison with the divine Adjusters. The ear of the human mind is almost deaf to the spiritual pleas which the Adjuster translates from the manifold messages of the universal broadcasts of love proceeding from the Father of mercies. The Adjuster finds it almost impossible to register these inspiring spirit leadings in an animal mind so completely dominated by the chemical and electrical forces inherent in your physical natures.

110:7.7 (1213.2) Adjusters rejoice to make contact with the mortal mind; but they must be patient through the long years of silent sojourn during which they are unable to break through animal resistance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you. The higher the Thought Adjusters ascend in the scale of service, the more efficient they become. But never can they greet you, in the flesh, with the same full, sympathetic, and expressionful affection as they will when you discern them mind to mind on the mansion worlds.

110:7.8 (1213.3) During mortal life the material body and mind separate you from your Adjuster and prevent free communication; subsequent to death, after the eternal fusion, you and the Adjuster are one — you are not distinguishable as separate beings — and thus there exists no need for communication as you would understand it.

110:7.9 (1213.4) While the voice of the Adjuster is ever within you, most of you will hear it seldom during a lifetime. Human beings below the third and second circles of attainment rarely hear the Adjuster's direct voice except in moments of supreme desire, in a supreme situation, and consequent upon a supreme decision.

110:7.10 (1213.5) During the making and breaking of a contact between the mortal mind of a destiny reservist and the planetary supervisors, sometimes the indwelling Adjuster is so situated that it becomes possible to transmit a message to the mortal partner. Not long since, on Urantia, such a message was transmitted by a self-acting Adjuster to the human associate, a member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is message was introduced by these words: "And now, without injury or jeopardy to the subject of my solicitous devotion and without intent to overchastise or discourage, for me, make record of this my plea to him." Then followed a beautifully touching and appealing admonition. Among other things, the Adjuster pleaded "that he more faithfully give me his sincere co-operation, more cheerfully endure the tasks of my emplacement, more faithfully carry out the program of my arrangement, more patiently go through the trials of my selection,

내 훈계를 전하라. 나는 그에게 최상의 헌신과 신성한 영의 애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상대자에게, 끝나는 순간까지, 이 땅의 마지막 분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지혜와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인격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 인내와 격렬한 분투에 대한 보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생존하라고 타이른다. 우리가 인격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궤도 한 궤도, 나는 이 인간 정신의 높이까지 인내심을 갖고 올라왔으며, 내 부류의 우두머리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나는 판결 받기까지, 한 궤도 한 궤도 전진하고 있다. 나는 기쁨으로, 염려하지 않으면서, 운명의 출석점호를 기다리며;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돼있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more persistently and cheerfully tread the path of my choosing, more humbly receive credit that may accrue as a result of my ceaseless endeavors — thus transmit my admonition to the man of my indwelling. Upon him I bestow the supreme devotion and affection of a divine spirit. And say further to my beloved subject that I will function with wisdom and power until the very end, until the last earth struggle is over; I will be true to my personality trust. And I exhort him to survival, not to disappoint me, not to deprive me of the reward of my patient and intense struggle. On the human will our achievement of personality depends. Circle by circle I have patiently ascended this human mind, and I have testimony that I am meeting the approval of the chief of my kind. Circle by circle I am passing on to judgment. I await with pleasure and without apprehension the roll call of destiny; I am prepared to submit all to the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110:7.11 (1214.1)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11편. 조율사와 혼

⇨ 110

유란시아 책

112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111편
조율사와 혼

섹션

소개

1. 선택하는 정신 경기장
2. 혼의 본성
3. 진화하는 혼
4. 내면생활
5. 선택을 성별함
6. 인간의 역설
7. 조율사의 과제

PAPER 111

THE ADJUSTER AND THE SOU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ind Arena of Choice
2. Nature of the Soul
3. The Evolving Soul
4. The Inner Life
5. The Consecration of Choice
6. The Human Paradox
7. The Adjuster's Problem

소개

신성한 **조율사**가 인간 정신 속에 현존함은, 과학 또는 철학이 인간 인격의 진화하는 혼을 만족스럽게 납득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론시아 혼은 우주의 산물이며, 오직 시공우주 통찰력 및 영적{靈的} 발견을 통해서만 정말로 혼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혼이 있고, 혼에 내주하는 영이 있다는 개념은, **유란시아**에 새롭지 않으며, 이 개념은 행성의 다양한 믿음 체계에 자주 출현했다. 어떤 **서양** 신앙뿐 아니라 **동양**의 여러 신앙은, 사람이 인간적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유산을 가졌음을 감지했다. **신격**이 바깥에 두루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현존하신다는 느낌이, 오랫동안 많은 **유란시아** 종교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 인간 본성 안에서 무언가, 짧은 현재 생애의 저편에서 계속할 운명을 지닌 어떤 생명원천이 자라고 있음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다.

신성한 영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을 낳았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혼이 육신의 다른 기관에--곧 눈, 간, 콩팥, 심장, 그리고 나중에는 뇌에-- 거한다고 생각했다. 미개인은 혼을, 피, 숨결,

INTRODUCTION

111:0.1 (1215.1) THE presence of the divine Adjuster in the human mind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either science or philosophy to attain a satisfactory comprehension of the evolving soul of the human personality. The morontia soul is the child of the universe and may be really known only through cosmic insight and spiritual discovery.

111:0.2 (1215.2) The concept of a soul and of an indwelling spirit is not new to Urantia; it has frequently appeared in the various systems of planetary beliefs. Many of the Oriental as well as some of the Occidental faiths have perceived that man is divine in heritage as well as human in inheritance. The feeling of the inner presence in addition to the external omnipresence of Deity has long formed a part of many Urantian religions. Men have long believed that there is something growing within the human nature, something vital that is destined to endure beyond the short span of temporal life.

111:0.3 (1215.3) Before man realized that his evolving soul was fathered by a divine spirit, it was thought to reside in different physical organs — the eye, liver, kidney, heart, and later, the brain. The savage

그림자 및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연결시켰다.

힌두교 선생들은 **대아{大我}**를 생각함으로써 **조울사**의 본성과 현존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접근했지만, 진화하면서 불멸의 잠재성을 갖는 혼이 공존한다는 것을 식별하지는 못했다. 반면에, **중국인**은 인간의 두 가지 면, ‘양{陽}’과 ‘음{陰}’, 혼과 영을 인식했다. **이집트인**과 여러 **아프리카** 부족도, 두 요소, 즉 ‘카’와 ‘바’를 믿었으며; 혼은 선재하지 않고, 영{靈}만 그렇다고 대개 믿었다.

나일 강 유역에 거주하던 자들은, 은총을 얻은 각 개인이 태어날 때, 또는 바로 그 후에, 보호하는 영이 증여된다고 믿었고, 이것을 ‘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수호 영이 일생동안 필사 상대자와 함께 남아 있다가, 그보다 먼저 미래의 생애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룩소**에 있는 한 신전 벽에는 **아멘호텝** 3세의 탄생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어린 왕자가 **나일** 강 신{神}의 팔 위에 그려져 있고, 그의 곁에는 그 왕자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인**이 ‘카’라고 부르는 그 실재의 상징이다. 이 조각은 기원전 15세기에 완성됐다.

‘카’는 관련된 필사자의 혼을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길로 안내하기를 바라지만, 더 특별히 다음 세상에서 그 인간 상대자의 행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뛰어난 천재 영이라고 생각됐다. 이 시대에 살던 **이집트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카’가 **큰 강** 저편에서 자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처음에는, 왕들만 ‘카’를 소유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모든 의인이 ‘카’를 소유한다고 믿게 됐다. 어느 **이집트** 통치자는, 자기 마음 속의 ‘카’를 언급하며 말했다: “나는 ‘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카’의 인도를 여기기를 두려워했다. 나는 ‘카’로 인해 번영했으며; ‘카’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으며; 나는 그 안내로 저명하게 됐다.” ‘카’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린 신탁{神託}”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겁게 영원을 보내리라”고 믿었다.

진화하는 **유란시아** 필사자 종족마다, 혼 개념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를 갖고 있다. 미개한 여러 민족은 혼이 인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증오심에 찬 **흉안{凶眼}**을 매우 무서워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라”고 믿었다. **리그 베다**에는: “내 정신이 내 가슴에게 말한다”고 씌어있다.

associated the soul with blood, breath, shadows and with reflections of the self in water.

111:0.4 (1215.4) In the conception of the *atman* the Hindu teachers really approximated an appreciation of the nature and presence of the Adjuster, but they failed to distinguish the copresence of the evolving and potentially immortal soul. The Chinese, however, recognized two aspects of a human being, the *yang* and the *yin*, the soul and the spirit. The Egyptians and many African tribes also believed in two factors, the *ka* and the *ba*; the soul was not usually believed to be pre-existent, only the spirit.

111:0.5 (1215.5) The inhabitants of the Nile valley believed that each favored individual had bestowed upon him at birth, or soon thereafter, a protecting spirit which they called the *ka*. They taught that this guardian spirit remained with the mortal subject throughout life and passed before him into the future estate. On the walls of a temple at Luxor, where is depicted the birth of Amenhotep III, the little prince is pictured on the arm of the Nile god, and near him is another child, in appearance identical with the prince, which is a symbol of that entity which the Egyptians called the *ka*. This sculpture was completed in the fifteenth century before Christ.

111:0.6 (1215.6) The *ka* was thought to be a superior spirit genius which desired to guide the associated mortal soul into the better paths of temporal living but more especially to influence the fortunes of the human subject in the hereafter. When an Egyptian of this period died, it was expected that his *ka* would be waiting for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Great River. At first, only kings were supposed to have *kas*, but presently all righteous men were believed to possess them. One Egyptian ruler, speaking of the *ka* within his heart, said: “I did not disregard its speech; I feared to transgress its guidance. I prospered thereby greatly; I was thus successful by reason of that which it caused me to do; I was distinguished by its guidance.” Many believed that the *ka* was “an oracle from God in everybody.” Many believed that they were to “spend eternity in gladness of heart in the favor of the God that is in you.”

111:0.7 (1216.1) Every race of evolving Urantia mortals has a word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soul. Many primitive peoples believed the soul looked out upon the world through human eyes; therefore did they so cravenly fear the malevolence of the evil eye. They have long believed that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The Rig-Veda says: “My mind speaks to my heart.”

1. 선택하는 정신 경기장

조울사의 활동이 본질적으로는 영적이더라

1. THE MIND ARENA OF CHOICE

111:1.1 (1216.2) Though the work of Adjusters is

도, 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적 기초 위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 정신은 인간의 토양이요, 그 토양으로부터, 영 **관찰자**는 자신이 내주하는 인격체의 협조를 얻어서 모론시아 혼을 증진시켜야 한다.

온갖 우주에 있는 여러 정신 수준에는 시공우주의 통일성이 있다. 마치 성운(星雲)이 우주 공간에 있는 시공우주 에너지에서 기원되는 것처럼, 지적 자아는 시공우주 정신에서 기원된다. 지적 자아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따라서 인격있는 수준에서), 필사 정신의 동의에 따라 영의 진화 잠재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인간 자아 안에 있는 절대 가치의 실재_접촉점이 창조적 현존과 함께 하는, 인간 인격의 영적 재능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물질 정신의 영 지배는 두 가지 제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정신은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사역을 통해서 진화했어야 하며, 물질적 (인격적) 자아는, 모론시아 자아, 즉 진화하고 불멸의 잠재력이 있는 혼을 창조하고 돌보면서 내주하는 **조율사**와 협동하는 쪽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물질 정신은 인간의 인격이 사는 경기장인데, 이 인격은 자아를_의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택하거나 저버리고, 자신을 영원하게 만들거나 파괴한다.

물질 진화가 생명 장치인 육신을 너에게 제공했으며, 우주에 알려진 실체 중에서 가장 순수한 영 실체인 **사교 조율사**를, **아버지**께서 직접 너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나 바로 너의 결정에 따라서, 네 손에 정신이 주어졌으며,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 정신에 달렸다. 너는 이 정신 속에서, 이 정신으로, 너를 **조율사**처럼 만들 수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사**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필사자의 정신은, 물질적 일생 동안에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대여된 일시적 지능 체계이며, 인간은 이 정신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실존할 잠재성을 수락하거나 거절한다. 우주 실체 중에서 네 뜻에 지배되는 것은 네가 가진 정신이 전부이며, 혼은--곧 모론시아 자아는-- 필사 자아가 현세에 내리는 결정들이 거두는 수확을 충실히 묘사할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아래로 전기화학 장치 위에 살며시 놓여 있고, 위로는 영_모론시아 에너지 체계에 정교하게 접촉돼 있다. 인간은, 그 필사 생애 중에, 이 두 체계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완전하게 의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신이 의식하는 정신 속에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이 무엇을 납득하는가 하는 것보다, 정신이 무엇을 납득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생존을 보증하며; 정신이 무엇과 비슷한가보다, 무엇처럼 되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영의 신분을 증명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 영원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spiritual in nature, they must, perforce, do all their work upon an intellectual foundation. Mind is the human soil from which the spirit Monitor must evolve the morontia soul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dwelt personality.

111:1.2 (1216.3) There is a cosmic unity in the several mind level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ntellectual selves have their origin in the cosmic mind much as nebulae take origin in the cosmic energies of universe space. On the human (hence personal) level of intellectual selves the potential of spirit evolution becomes dominant, with the assent of the mortal mind, because of the spiritual endowments of the human personality together with the creative presence of an entity-point of absolute value in such human selves. But such a spirit dominance of the material mind is conditioned upon two experiences: This mind must have evolved up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nd the material (personal) self must choose to co-operate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in creating and fostering the morontia self, the evolutionary and potentially immortal soul.

111:1.3 (1216.4) Material mind is the arena in which human personalities live, are self-conscious, make decisions, choose God or forsake him, eternalize or destroy themselves.

111:1.4 (1216.5) Material evolution has provided you a life machine, your body; the Father himself has endowed you with the purest spirit reality known in the universe, your Thought Adjuster. But into your hands, subject to your own decisions, has been given mind, and it is by mind that you live or die. It is within this mind and with this mind that you make those moral decisions which enable you to achieve Adjusterlikeness, and that is Godlikeness.

111:1.5 (1216.6) Mortal mind is a temporary intellect system loaned to human beings for use during a material lifetime, and as they use this mind, they are either accepting or rejecting the potential of eternal existence. Mind is about all you have of universe reality that is subject to your will, and the soul — the morontia self — will faithfully portray the harvest of the temporal decisions which the mortal self is making. Human consciousness rests gently upon the electrochemical mechanism below and delicately touches the spirit-morontia energy system above. Of neither of these two systems is the human being ever completely conscious in his mortal life; therefore must he work in mind, of which he is conscious. And it is not so much what mind comprehends as what mind desires to comprehend that insures survival; it is not so much what mind is like as what mind is striving to be like that constitutes spirit identification. It is not so much that man is conscious of God as that man yearns for God that results in universe ascension. What you are today

정신은, 인간의 의지가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하든지, 아니면 바로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 사람을 영원히 생존시키는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시공우주 악기다. 결국, 사람에게 증여된 **조율사**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없지만, 필사 정신은 사악하고 사리를_피하는 인간 의지의 죄 많은 음모로 인해, 실제로 비틀리고, 일그러지고, 악하고 비열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영의 빛을 받은 의지에 따라서, 고결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선하게--정말로 위대하게--될 수 있다.

진화하는 정신은, 시공우주의 지적성향의 두 극단에--곧 온전히 기계화된 것과 완전히 영성화된 것에--스스로 나타날 때에만 전적으로 안정되고 신뢰할 만하다. 순전히 기계적인 통제와, 참된 영 본성, 지적인 이 양극단 사이에는 거대한 집단의 진화하고 상승하는 정신들이 개입하는데, 그 정신들의 안정성과 차분함은 인격의 선택과 영의 일체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자기의 의지를 **조율사**에게 굴복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율사**의 인도가 자연스런 필사 정신의 욕구 및 충동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렇게 의식하면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조율사**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조율사**는,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지만, 그의 뜻에 어긋나게 지배하지는 않으며; 인간의 뜻이 **조율사**에게 최고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하는 인간 지능이라는 거의 한없는 경기장에서, 사고를 조절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영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동안, 인간의 뜻을 그토록 고려하고 존중한다.

정신은 너의 배, **조율사**는 너의 도선사{導船士}, 인간의 의지는 선장이다. 필사적 배의 주인은, 상승하는 혼을 영원한 생존의 모론시아 항구로 안내하는 신성한 도선사를 신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오직 이기심, 나태함, 및 범죄만이, 사람의 의지로 하여금 그런 사랑하는 도선사의 안내를 거부하게 할 수 있고, 결국 거부된 자비의 함정과 포위된 죄의 바위에 필사자의 생애가 파선되게 한다. 이 신실한 도선사는, 너의 동의에 따라서,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지나 신성한 정신의 바로 그 근원까지, 그리고 이를 지나서 계속, 심지어 **조율사**들의 **낙원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2. 혼의 본성

시공우주 지성의 정신 기능 전반에 걸쳐서, 전체 정신이 지적 활동의 부분들을 지배한다. 정

is not so important as what you are becoming day by day and in eternity.

111:1.6 (1217.1) Mind is the cosmic instrument on which the human will can play the discords of destruction, or upon which this same human will can bring forth the exquisite melodies of God identification and consequent eternal survival. The Adjuster bestowed upon man is, in the last analysis, impervious to evil and incapable of sin, but mortal mind can actually be twisted, distorted, and rendered evil and ugly by the sinful machinations of a perverse and self-seeking human will. Likewise can this mind be made noble, beautiful, true, and good — actually great —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illuminated will of a God-knowing human being.

111:1.7 (1217.2) Evolutionary mind is only fully stable and dependable when manifesting itself upon the two extremes of cosmic intellectuality — the wholly mechanized and the entirely spiritualized. Between the intellectual extremes of pure mechanical control and true spirit nature there intervenes that enormous group of evolving and ascending minds whose stability and tranquillity are dependent upon personality choice and spirit identification.

111:1.8 (1217.3) But man does not passively, slavishly, surrender his will to the Adjuster. Rather does he actively, positively, and co-operatively choose to follow the Adjuster's leading when and as such leading consciously differs from the desires and impulses of the natural mortal mind. The Adjusters manipulate but never dominate man's mind against his will; to the Adjusters the human will is supreme. And they so regard and respect it while they strive to achieve the spiritual goals of thought adjustment and character transformation in the almost limitless arena of the evolving human intellect.

111:1.9 (1217.4) Mind is your ship, the Adjuster is your pilot, the human will is captain. The master of the mortal vessel should have the wisdom to trust the divine pilot to guide the ascending soul into the morontia harbors of eternal survival. Only by selfishness, slothfulness, and sinfulness can the will of man reject the guidance of such a loving pilot and eventually wreck the mortal career upon the evil shoals of rejected mercy and upon the rocks of embraced sin. With your consent, this faithful pilot will safely carry you across the barriers of time and the handicaps of space to the very source of the divine mind and on beyond, even to the Paradise Father of Adjusters.

2. NATURE OF THE SOUL

111:2.1 (1217.5) Throughout the mind functions of cosmic intelligence, the totality of mind is dominant

신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능적 단일체이며; 따라서 잘못 인도된 자아가 현명치 못하게 행동하고 선택함으로써 회방 받고 저지당할 때조차, 정신은 어김없이 이런 구조적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신의 이 통일성은, 의지의 존엄성과 상승 특권을 갖는 자아들과 관련되는 모든 수준에서, 영의 협조를 늘 추구한다.

필사적 사람의 물질 정신은, 모론시아 원단을 걸어놓은 시공우주 방직기계와 같은데,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는 그 원단 위에, 영속적 가치와 신성한 의미를 지닌 우주 성품--곧 궁극적 운명과 무궁한 생애를 지닌 생존하는 혼, 즉 잠재적 완결성취자--의 영(靈) 무늬를 수놓는다.

인간의 인격은, 물질 육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인한 기능적 관계에 함께 묶여있는 정신 및 영과 동일시된다. 그런 정신과 영이 작용하는 이 관계는, 정신과 영의 특성 또는 속성의 어떤 배합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할 잠재력이 있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독특한 우주 가치, 즉 혼을 낳는다.

그런 불멸의 혼을 진화로 창조하는 데는 둘이 아니라 세 요소가 있다. 모론시아 인간 혼의 이 세 가지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정신**, 그리고 그것에 선행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공우주 영향.

2. 이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그리고 인생에 관련된 모든 영적 영향 및 요소와 함께, 절대 영성(靈性)의 그런 단편 속에 타고난 모든 잠재성.

3. **물질 정신과 신성한 영 사이의 관계**인데, 그런 연합에 기여하는 어느 쪽 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가치를 뜻하고 의미를 지닌다. 이 독특한 관계의 실체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으나, 모론시아다. 그것이 혼이다.

중도 피조물은, 사람의 이 진화하는 혼을, 낮거나 물질적인 정신, 그리고 높거나 포괄적인 정신과 구별되도록, 중간_정신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다. 이 중간_정신은 진정으로 모론시아 현상인데, 이것이 물질계와 영계 사이의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론시아로 진화하는 잠재성은, 정신의 두 보편적 충동에 타고 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의 신성을 획득하려는 피조물의 유한한 정신의 욕구, 그리고 사람을 알고 피조물의 체험을 획득하려는 **창조주**의 무한한 정신의 욕구다.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이 숭고한 처리사항은, 인간 정신이 첫째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초동물적 실체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그 정신은, 도덕적 결정을 가능하

over the parts of intellectual function. Mind, in its essence, is functional unity; therefore does mind never fail to manifest this constitutive unity, even when hampered and hindered by the unwise actions and choices of a misguided self. And this unity of mind invariably seeks for spirit co-ordination on all levels of its association with selves of will dignity and ascension prerogatives.

111:2.2 (1217.6) The material mind of mortal man is the cosmic loom that carries the morontia fabrics on whic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threads the spirit patterns of a universe character of enduring values and divine meanings — a surviving soul of ultimate destiny and unending career, a potential finaliter.

111:2.3 (1218.1) The human personality is identified with mind and spirit held together in functional relationship by life in a material body. This functioning relationship of such mind and spirit does not result in some combination of the qualities or attributes of mind and spirit but rather in an entirely new, original, and unique universe value of potentially eternal endurance, the *soul*.

111:2.4 (1218.2) There are three and not two factors in the evolutionary creation of such an immortal soul. These three antecedents of the morontia human soul are:

111:2.5 (1218.3) 1. *The human mind* and all cosmic influences antecedent thereto and impinging thereon.

111:2.6 (1218.4) 2. *The divine spirit* indwelling this human mind and all potentials inherent in such a fragment of absolute spirituality together with all associated spiritual influences and factors in human life.

111:2.7 (1218.5)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mind and divine spirit*, which connotes a value and carries a meaning not found in either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such an association. The reality of this unique relationship is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but morontial. It is the soul.

111:2.8 (1218.6) The midway creatures have long denominated this evolving soul of man the mid-mind in contradistinction to the lower or material mind and the higher or cosmic mind. This mid-mind is really a morontia phenomenon since it exists in the realm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potential of such a morontia evolution is inherent in the two universal urges of mind: the impulse of the finite mind of the creature to know God and attain the divinity of the Creator, and the impulse of the infinite mind of the Creator to know man and attain the *experience* of the creature.

111:2.9 (1218.7) This supernal transaction of evolving the immortal soul is made possible because the mortal mind is first personal and second is in contact with superanimal realities; it possesses a

게 하는 도덕적 본성의 진화를 보장하는 시공우주 사역의 초물질적 재능을 소유하는데, 그러므로써 관련된 영적 사역들과, 그리고 내주하는 **조울사**와 진실한 독창적 접촉을 이룩한다.

인간 정신이 접촉해서 그렇게 영성화되는 필연적 결과는, 혼이 점진적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그 혼은,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어 하는 인간 의지에 지배되는 보조 정신이, 우주의 영적 세력들과 접촉하면서 일함으로써 공동으로 만든 산물이며, 그 영적 세력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실제 단편--곧 **신비 관찰자**--의 전면통제 아래 있다. 그리하여 자아의 물질적 및 필사적 실체는, 육체의 삶을 영위하는 기관의 일시적 한계를 초월하며, 자아성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진화하는 매개체 속에서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일체감을 달성하는데, 이 매개체가 불멸의 모론시아 혼이다.

3. 진화하는 혼

필사 정신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혼의 진화를 심히 늦출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피조물 의지가 동의함에 따라서, 내주하는 **조울사**가 혼의 진화를 일단 시작하면, 그런 모론시아 현상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필사자가 죽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로 이 물질적 인간 의지는, 그런 선택을 취소하거나 생존하기를 거부할 힘이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심지어 생존한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거부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전히 지니며; **조울사**와 융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진화하며 상승하는 피조물이 **낙원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조울사**와 융합하는 것은, 상승하는 그 필사자가 영원히 무제한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육신 속에 사는 동안, 진화하는 혼은 필사 정신의 초물질적 결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혼은, 초물질이므로, 인간이 체험하는 물질 수준에서 저절로 작용하지 않는다. 영적이지 못한 이 혼은, **인격**의 어떤 영, 즉 **조울사** 같은 그런 존재의 협조 없이는, 모론시아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용할 수도 없다. 이 물질 정신이, 관련된 기능을 가진 그런 모론시아 혼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그런 권한을 위임할 때, 그리고 그러는 동안 외에는, 죽음이나 전환이 필사 정신과 물질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혼을 분리할 때까지, 혼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생애 동안에, 필사자의 의지, 즉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격의 능력은 물질 정신 회로에 거하며; 땅에서 필사자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자아는, 귀중한 선택 능력과 함께, 떠오르는 모론시아 혼 실제와 점차 동일시되며; 죽고 나서 맨션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인간의 인격은 모론시아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이처럼 혼은, 인격의 정체성을 지닌, 미래에 모론시아 운송수단이 되는 새싹이다.

supermaterial endowment of cosmic ministry which insures the evolution of a moral nature capable of making moral decisions, thereby effecting a bona fide creative contact with the associated spiritual ministries and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11:2.10 (1218.8) The inevitable result of such a contactual spiritualization of the human mind is the gradual birth of a soul, the joint offspring of an adjutant mind dominated by a human will that craves to know God, working in liaison with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which are under the overcontrol of an actual fragment of the very God of all creation — the Mystery Monitor. And thus does the material and mortal reality of the self transcend the temporal limitations of the physical-life machine and attain a new expression and a new identification in the evolving vehicle for selfhood continuity, the morontia and immortal soul.

3. THE EVOLVING SOUL

111:3.1 (1218.9) The mistakes of mortal mind and the errors of human conduct may markedly delay the evolution of the soul, although they cannot inhibit such a morontia phenomenon when once it has been initiated by the indwelling Adjuster with the consent of the creature will. But at any time prior to mortal death this same material and human will is empowered to rescind such a choice and to reject survival. Even after survival the ascending mortal still retains this prerogative of choosing to reject eternal life; at any time before fusion with the Adjuster the evolving and ascending creature can choose to forsake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Fusion with the Adjuster signalizes the fact that the ascending mortal has eternally and unreservedly chosen to do the Father's will.

111:3.2 (1219.1)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 evolving soul is enabled to reinforce the supermaterial decisions of the mortal mind. The soul, being supermaterial, does not of itself function on the material level of human experience. Neither can this subspiritual soul, without the collaboration of some spirit of Deity, such as the Adjuster, function above the morontia level. Neither does the soul make final decisions until death or translation divorces it from material association with the mortal mind except when and as this material mind delegates such authority freely and willingly to such a morontia soul of associated function. During life the mortal will, the personality power of decision-choice, is resident in the material mind circuits; as terrestrial mortal growth proceeds, this self, with its priceless powers of choice, becomes increasingly identified with the emerging morontia-soul entity; after death and following the mansion world resurrection, the human personality is

이 불멸의 혼은, 처음에 전적으로 모론시아 본성을 갖지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격**의 영들과 융합할 가치가 있는 참된 영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며, 대개는 피조물의 정신 속에 그런 독창적 현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만유의 아버지**의 영과 융합한다.

인간 정신과 신성한 **조율사**, 이 둘은--곧 **조율사**는 전체적으로, 정신은 부분적으로--, 진화하는 혼의 실재 및 특이한 본성을 의식한다. 혼은, 그 자체의 진화 성장에 비례해서, 정신과 **조율사** 양쪽을 점점 더 연합된 정체성으로서 의식하게 된다. 혼은, 인간 정신과 신성한 영, 이 둘의 특성을 함께 띄지만, 정신 기능 육성을 통해서, 영 통제와 신성한 지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정신 기능이 의미하는 것들은 참된 영 가치와 조화하기를 추구한다.

혼이 진화하는, 필사자의 생애는, 보호관찰기 간이라기보다는 교육기간이다. 최상의 가치가 살아남는 것을 믿는 신앙이 종교의 중심이며; 참된 종교 체험은, 최상의 가치와 시공우주 의미가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우주 실체로 실현되는 데 있다.

정신은, 양, 실체, 의미를 안다. 그러나 질(質)은--곧 가치는-- 느껴진다. 느끼는 그 주체는, 아는 정신 및 실체화하는 관련된 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치_실현인,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에 스며들어 있는 한, 그 결과로 생기는 그런 존재는 파괴될 수 없다. 사람의 진화하는 혼 속에 생존할만한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필사자의 실존은 의미가 없으며, 삶 자체가 비극적 망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영원한 진리다: 너희가 시간세계에서 시작한 것은 --마무리할 가치가 있다면-- 영원 속에서 확실히 완성할 것이다.

4. 내면생활

인식한다는 것은, 바깥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적 느낌을, 개인의 기억 양식 속으로 맞춰 넣는 지적 과정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인식된 감각적 느낌과 그에 관련된 기억 양식이, 역동적 원적 연락망 속으로 합쳐지고 조직됐음을 의미한다.

의미는 인식과 이해의 조합에서 파생된다. 의미는, 전적으로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인 세계에는

completely identified with the morontia self. The soul is thus the embryo of the future morontia vehicle of personality identity.

111:3.3 (1219.2) This immortal soul is at first wholly morontia in nature, but it possesses such a capacity for development that it invariably ascends to the true spirit levels of fusion value with the spirits of Deity, usually with the sam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that initiated such a creative phenomenon in the creature mind.

111:3.4 (1219.3) Both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are conscious of the presence and differential nature of the evolving soul — the Adjuster fully, the mind partially. The soul becomes increasingly conscious of both the mind and the Adjuster as associated identities, proportional to its own evolutionary growth. The soul partakes of the qualities of both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spirit but persistently evolves toward augmentation of spirit control and divine dominance through the fostering of a mind function whose meanings seek to co-ordinate with true spirit value.

111:3.5 (1219.4) The mortal career, the soul's evolution, is not so much a probation as an education. Faith in the survival of supreme values is the core of religion;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consists in the union of supreme values and cosmic meanings as a realization of universal reality.

111:3.6 (1219.5) Mind knows quantity, reality, meanings. But quality — values — is *felt*. That which feels is the mutual creation of mind, which knows, and the associated spirit, which reality-izes.

111:3.7 (1219.6) In so far as man's evolving morontia soul becomes permeated by truth, beauty, and goodness as the value-realization of God-consciousness, such a resultant being becomes indestructible. If there is no survival of eternal values in the evolving soul of man, then mortal existence is without meaning, and life itself is a tragic illusion. But it is forever true: What you begin in time you will assuredly finish in eternity — if it is worth finishing.

4. THE INNER LIFE

111:4.1 (1219.7) Recognition is the intellectual process of fitting the sensory impressions received from the external world into the memory patterns of the individual. Understanding connotes that these recognized sensory impressions and their associated memory patterns have become integrated or organized into a dynamic network of principles.

111:4.2 (1220.1) Meanings are derived from a combination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와 가치는, 오직 인간 체험의 내면, 즉 초물질 영역에서만 감지된다.

참 문명의 진보는 모두, 인류의 이런 내면세계에서 탄생된다. 참으로 독창적인 것은 내면생활 뿐이다. 어떤 세대든지, 대다수의 젊은이가 자신의 흥미와 에너지를 감각 또는 바깥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추구에 쏟을 때에는, 문명이 도저히 진보할 수 없다.

내면세계와 바깥세계는 서로 다른 일련의 가치를 갖는다. 어떤 문명이든지, 젊은이 가운데 4분의 3이 유물론적 직업에 종사하고, 바깥세계의 감각적 활동 추구에 몰두할 때에는 위태롭다. 젊은이가, 윤리학, 사회학, 우생학, 철학, 순수 예술, 종교, 및 우주론 등에 흥미를 두지 않을 때, 문명은 위험에 봉착한다.

너희는 오직 초의식 정신의 높은 수준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영 영역에 초의식 정신이 접촉함에 따라서, 더 낮고 더 영구적인 문명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효과적인 지배적 모형과 관련된 그런 높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격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지만, 오직 개인의 내면생활에서만 그렇게 작용한다.

눈(雪)의 결정체는 항상 6각형 형태를 갖지만 어떤 것도 서로 똑같지 않다. 자녀들이 어떤 유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둘이 똑같은 경우는 전혀 없으며, 쌍둥이인 경우라도 그렇다. 인격도 유형을 따르기는 하지만, 항상 독특하다.

행복과 즐거움은 내면생활에서 기원된다. 너희는 혼자 힘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없다. 외로운 삶은 행복에 치명적이다. 심지어 가족이나 나라들조차, 삶을 서로 나눌 때 삶을 더 즐길 것이다.

너희는 바깥세계를--곧 환경을--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너의 방향 설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세계의 창조성인데, 거기서 너의 인격이, 전에 인과(因果) 법칙에 구속됐던 상태로부터 대체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인격에는 의지의 제한된 주권이 관련돼 있다.

사람의 이 내면생활이 진실로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 창조성이 자발적이고 전혀 우연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통제되고, 지시되고, 구조적인 것이 되든지, 그 선택의 책임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하는 무대 위에, 선입관, 미움, 두려움, 분노, 복수심, 및 편협함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그 상상력이 어떻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생각은 바깥세계의 충동에서 일어나지만, 이상(理想)은 오직 내면세계의 창조적 영역에서만 탄생된다. 많은 관념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늘날

Meanings are nonexistent in a wholly sensory or material world. Meanings and values are only perceived in the inner or supermaterial spheres of human experience.

111:4.3 (1220.2) The advances of true civilization are all born in this inner world of mankind. It is only the inner life that is truly creative. Civilization can hardly progress when the majority of the youth of any generation devote their interests and energies to the materialistic pursuits of the sensory or outer world.

111:4.4 (1220.3) The inner and the outer worlds have a different set of values. Any civilization is in jeopardy when three quarters of its youth enter materialistic professions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pursuit of the sensory activities of the outer world. Civilization is in danger when youth neglect to interest themselves in ethics, sociology, eugenics, philosophy, the fine arts, religion, and cosmology.

111:4.5 (1220.4) Only in the higher levels of the superconscious mind as it impinges upon the spirit realm of human experience can you find those higher concepts in association with effective master pattern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better and more enduring civilization. Personality is inherently creative, but it thus functions only in the inner life of the individual.

111:4.6 (1220.5) Snow crystals are always hexagonal in form, but no two are ever alike. Children conform to types, but no two are exactly alike, even in the case of twins. Personality follows types but is always unique.

111:4.7 (1220.6) Happiness and joy take origin in the inner life. You cannot experience real joy all by yourself. A solitary life is fatal to happiness. Even families and nations will enjoy life more if they share it with others.

111:4.8 (1220.7) You cannot completely control the external world — environment. It is the creativity of the inner world that is most subject to your direction because there your personality is so largely liberated from the fetters of the laws of antecedent causation. There i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a limited sovereignty of will.

111:4.9 (1220.8) Since this inner life of man is truly creative, there rests upon each person the responsibility of choosing as to whether this creativity shall be spontaneous and wholly haphazard or controlled, directed, and constructive. How can a creative imagination produce worthy children when the stage whereon it functions is already preoccupied by prejudice, hate, fears, resentments, revenge, and bigotries?

111:4.10 (1220.9) Ideas may take origin in the stimuli of the outer world, but ideals are born only in the creative realms of the inner world. Today the

세계의 나라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상{理想}은 가난에 _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난, 이혼, 전쟁, 및 종족 간의 증오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문제는 바로: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 내면에 창조성의 능력을 타고난다면, 자유의지적 창조성이 자유의지적 파괴 능력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에는, 너희가 죄와 악--곧 억압, 전쟁, 그리고 파괴--의 참상에 직면한다. 악은 창조성이 치우친 것이고, 그것은 분열을 획책하고 결국 파괴로 향한다. 모든 대립은 내면생활의 창조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하다--대립은 인격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한 종자{種子}다.

내면의 창조성은, 인격을 종합하고 개성을 통합함으로써, 성품을 고상하게 만들도록 기여한다. 영원히 참된 것은: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오직 내면의 자아의 현재 창조성이 수고함으로써 앞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5. 선택을 성별함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곧 내면의 의미와 _가치가 있는 그런 피조물 생활을 가능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내면생활을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나눔은 **하나님** 같다--신성하다. **하나님**은 만유를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과 공유하시며, 그들은 우주들의 신성한 **아들들** 및 **영 딸들**과 차례로 만유를 공유하신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완전성에 이르는 열쇠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존하는 비결이고, 생존해서 완성에 이르는 비결이다.

필사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래서 **하나님**도 필사자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셨다. 사람이 자신을 그분께 맡기듯이, 그분도 --그리고 먼저-- 자신의 한 부분을 사람과 함께 있도록 맡기셨으며; 인간의 뜻에 맞춰서 사람 안에 살고, 사람에게 내주하기로 동의하셨다.

피조 인격체가 피조물의 의지를 **아버지** 뜻에 맡기기로 동의할 때--즉 선택할 때--, 이 생애에서 평화를 얻고, 죽음에서 생존하며, 다음 생애에서 완전하게 되고, 영원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이 모든 것이-- 지금 (영 속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자신의 단편이 피조물의 인격 의지에 지배되도록 하는 선택을 하셨다.

그런 피조물의 선택은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성별{聖別}, 의지의 확대, 의지의 찬미, 의지의 완성이며; 그런 선택은 피조물의 의지를 현재 의미 수준으로부터, 피조물 아들의 인격이 영 **아버지**의 인격과 교류하는 더 높은

nations of the world are directed by men who have a superabundance of ideas, but they are poverty-stricken in ideals. That is the explanation of poverty, divorce, war, and racial hatreds.

111:4.11 (1220.10) This is the problem: If freewill man is endowed with the powers of creativity in the inner man, then must we recognize that freewill creativity embraces the potential of freewill destructivity. And when creativity is turned to destructivity, you are face to face with the devastation of evil and sin — oppression, war, and destruction. Evil is a partiality of creativity which tends toward disintegration and eventual destruction. All conflict is evil in that it inhibits the creative function of the inner life — it is a species of civil war in the personality.

111:4.12 (1221.1) Inner creativity contributes to ennoblement of character through personality integration and selfhood unification. It is forever true: The past is unchangeable; only the future can be changed by the ministry of the present creativity of the inner self.

5. THE CONSECRATION OF CHOICE

111:5.1 (1221.2)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n exhibition of creature willingness to share the inner life with God — with the very God who has made such a creature life of inner meaning-value possible. Sharing is Godlike — divine. God shares all with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while they, in turn, share all things with the divine Sons and spirit Daughters of the universes.

111:5.2 (1221.3) The imitation of God is the key to perfection; the doing of his will is the secret of survival and of perfection in survival.

111:5.3 (1221.4) Mortals live in God, and so God has willed to live in mortals. As men trust themselves to him, so has he — and first — trusted a part of himself to be with men; has consented to live in men and to indwell men subject to the human will.

111:5.4 (1221.5) Peace in this life, survival in death, perfection in the next life, service in eternity — all these are achieved (in spirit) now when the creature personality consents — chooses — to subject the creature will to the Father's will. And already has the Father chosen to make a fragment of himself subject to the will of the creature personality.

111:5.5 (1221.6) Such a creature choice is not a surrender of will. It is a consecration of will, an expansion of will, a glorification of will, a perfecting of will; and such choosing raises the creature will from the level of temporal significance to that higher estate wherein the personality of the

은 신분으로 올려준다.

피조물 아들이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실적 현존 앞에 서기 전에 비록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이처럼 선택하는 것은, 필사적 사람이 영 **아버지**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피조물의 의지를 부인하는 데--곧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뤄지이다”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피조물의 긍정적 단언에--곧 “당신의 뜻이 이뤄짐이 내 뜻입니다”에--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선택이 이뤄지고 나면, **하나님**을 선택한 아들은 곧, 내주하는 **하나님**의 단편과 내면에서 합동(곧 융합)한 것을 발견할 것이며, 한편 완전하게 되는 바로 이 아들은, 사람의 인격이 **조물주**의 인격과 경건한 친교를 나누면서 최상의 인격 만족감을 발견할 것인데, 이 두 인격의 창조적 속성은, 스스로 작정한 공동 표현에서 영원히 결합했다--곧 사람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또 하나의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가 탄생했다.

6. 인간의 역설

필사적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은, 시공우주에 대하여 그가 갖는 이중적 관계에서 파생된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곧 자연 속에 존재하며--, 그럼에도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무한의 불꽃이 그에게 내주한다. 그런 이중적 상황이, 악의 잠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적지 않은 불안을 내포하는 많은 사회적 및 도덕적 상황을 발생시킨다.

천성{天性}을 정복하고 사람의 자아를 초월하는 데 필요한 용기는, 자만{自慢}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다.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필사자는, 자신의 자아_의식을 신격화하려는 유혹에 굴복할지도 모른다. 필사자의 진퇴양난은, 그가 자연에 묶여있는 동시에, 독특한 자유를--곧 영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소유한다는, 이중적 사실에 있다. 사람은, 물질 수준에서 자연에 예속된 자신을 발견하는 반면, 영적 수준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대해서 승리한다. 그런 역설{逆說}은, 유혹, 잠재적 악, 결정상의 실책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자아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때, 죄가 깊어질 것이다.

죄의 문제는 유한한 세계에서 스스로 실존하지 않는다. 유한이라는 사실은 악하거나 죄스런 것이 아니다. 유한한 세계는 무한한 **창조주**에게 지음 받았으며--곧 그의 신성한 **아들**들의 작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선하다. 유한한 것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남용함으로써 악과 죄가 발생한다.

영은 정신을 지배할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정신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물리적 영역에서 인과법칙이라는 엄밀한 수준에

creature son communes with the personality of the spirit Father.

111:5.6 (1221.7) This choosing of the Father's will is the spiritual finding of the spirit Father by mortal man, even though an age must pass before the creature son may actually stand in the factual presence of God on Paradise. This choosing does not so much consist in the negation of creature will —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 as it consists in the creature's positive affirmation: “It is my will that your will be done.” And if this choice is made, sooner or later will the God-choosing son find inner union (fusion) with the indwelling God fragment, while this same perfecting son will find supreme personality satisfaction in the worship communion of the personality of man and the personality of his Maker, two personalities whose creative attributes have eternally joined in self-willed mutuality of expression — the birth of another eternal partnership of the will of man and the will of God.

6. THE HUMAN PARADOX

111:6.1 (1221.8) Many of the temporal troubles of mortal man grow out of his twofold relation to the cosmos. Man is a part of nature — he exists in nature — and yet he is able to transcend nature. Man is finite, but he is indwelt by a spark of infinity. Such a dual situation not only provides the potential for evil but also engenders many social and moral situations fraught with much uncertainty and not a little anxiety.

111:6.2 (1222.1) The courage required to effect the conquest of nature and to transcend one's self is a courage that might succumb to the temptations of self-pride. The mortal who can transcend self might yield to the temptation to deify his own self-consciousness. The mortal dilemma consists in the double fact that man is in bondage to nature while at the same time he possesses a unique liberty — freedom of spiritual choice and action. On material levels man finds himself subservient to nature, while on spiritual levels he is triumphant over nature and over all things temporal and finite. Such a paradox is inseparable from temptation, potential evil, decisional errors, and when self becomes proud and arrogant, sin may evolve.

111:6.3 (1222.2) The problem of sin is not self-existent in the finite world. The fact of finiteness is not evil or sinful. The finite world was made by an infinite Creator — it is the handiwork of his divine Sons — and therefore it must be good. It is the misus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the finite that gives origin to evil and sin.

111:6.4 (1222.3) The spirit can dominate mind; so mind can control energy. But mind can control energy only through its own intelligent manipulation

내재된 변질 가능성을, 지성 자체가 숨겨 있게 처리함으로써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피조물의 정신은 선천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으며; 그것은 **신격**의 특권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정신은, 물리적 우주의 에너지 비밀을 정복하는 한도 내에서만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다.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변경하고 싶을 때, 그것이 자신이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수단과 방법을 발견한 그 정도까지 성공한다. 도움 받지 않는 정신은, 불가피하게 연결돼 있는 자신의 물리적 장치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에든지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 그러나 정신은, 몸 구조를 총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구조들, 심지어 에너지 관계들 및 삶의 관계들까지 창조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은 이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우주에서 물리적 수준을 점점 더 통제하고, 심지어 지배할 수도 있다.

과학은 사실의 근원이며, 정신은 사실 없이 작용할 수 없다. 사실은 지혜를 건축하는 벽돌과 같은데, 인생 체험으로 인해 함께 접착된다. 사람은 사실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성한 법칙과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화하는 시공우주 철학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결코 **제1 근원 및 중심**의 포괄적인 본성의 무한한 균형, 숭고한 조화, 절묘한 충만함을 헤아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물질적 지식의 확장은, 생각의 의미와 이상의 가치를 훨씬 더 지적으로 헤아릴 수 있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내적 체험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발견한 진리를 일상생활의 냉혹한 실질적 요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한편, 자연에 묶여서 탈출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필사적 사람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오직 종교적 확신이--곧 살아있는 신앙이--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사람의 인간 본성에 붙어서 괴롭히고 그의 영적 성실성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 용기는 씩씩함을 주지만, 자기중심은 허영심을 주며 자멸적이다. 합리적 자신감을 유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그를 동물계로부터 구별시킨다.

교만은, 개인, 단체, 인종, 또는 국가를 막론하고 어디서 발견되든지 기만적이며, 도취시키며, 죄를 잉태하도록 만든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先鋒)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틀림없다.

of the metamorphic potentials inherent in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physical domains. Creature mind does not inherently control energy; that is a Deity prerogative. But creature mind can and does manipulate energy just in so far as it has become master of the energy secrets of the physical universe.

111:6.5 (1222.4) When man wishes to modify physical reality, be it himself or his environment, he succeeds to the extent that he has discovered the ways and means of controlling matter and directing energy. Unaided mind is impotent to influence anything material save its own physical mechanism, with which it is inescapably linked. But through the intelligent use of the body mechanism, mind can create other mechanisms, even energy relationships and living relationships, by the utilization of which this mind can increasingly control and even dominate its physical level in the universe.

111:6.6 (1222.5) Science is the source of facts, and mind cannot operate without facts. They are the building blocks in the construction of wisdom which are cemented together by life experience. Man can find the love of God without facts, and man can discover the laws of God without love, but man can never begin to appreciate the infinite symmetry, the supernal harmony, the exquisite repleteness of the all-inclusive natu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until he has found divine law and divine love and has experientially unified these in his own evolving cosmic philosophy.

111:6.7 (1222.6) The expansion of material knowledge permits a greater intellectual appreciation of the meanings of ideas and the values of ideals. A human being can find truth in his inner experience, but he needs a clear knowledge of facts to apply his personal discovery of truth to the ruthlessly practical demands of everyday life.

111:6.8 (1222.7) It is only natural that mortal man should be harassed by feelings of insecurity as he views himself inextricably bound to nature while he possesses spiritual powers wholly transcendent to all things temporal and finite. Only religious confidence — living faith — can sustain man amid such difficult and perplexing problems.

111:6.9 (1223.1) Of all the dangers which beset man's mortal nature and jeopardize his spiritual integrity, pride is the greatest. Courage is valorous, but egotism is vainglorious and suicidal. Reasonable self-confidence is not to be deplored. Man's ability to transcend himself is the one thing which distinguishes him from the animal kingdom.

111:6.10 (1223.2) Pride is deceitful, intoxicating, and sin-breeding whether found in an individual, a group, a race, or a nation. It is literally true, “Pride goes before a fall.”

7. 조울사의 과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낙원** 모험--곧 시간과 정신 속의 불확실성, **낙원**으로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사건에 관한 불확실성;영 속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의 안전,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성한 연민에 대한 피조물 아들의 무조건적 신뢰에서 오는 안전;체험하지 못한 우주 시민으로서의 불확실성;전적으로 강력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시며, 만유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우주 맨션들에서 상승하는 아들로서의 안전--에서 본질적 요소다.

네 혼을 향해서 **조울사**가 충실하게 외치는 어렵קות한 반사음에 주의하라고, 너에게 충고해도 되겠는가? 내주하는 **조울사**는, 시간세계에서 분투하는 네 생애를 중지시킬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바꿀 수조차 없으며;**조울사**는, 네가 가혹한 이 세상에서 보내는 인생의 고난을 줄여줄 수도 없다. 신성한 내주자는, 네가 행성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에, 오직 인내심으로 참아낼 뿐이지만;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일하고 고민하는 동안, 싸우면서 수고하는 동안-- 용맹스런 **조울사**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싸우도록 허용할 수 있다. 네가 현 물질계의 평범한 문제들과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씨름을 하는 실제 동기, 최종 목표, 및 영원한 목적에 대한 묘사를 **조울사**가 끊임없이 발표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너는 무척 위로받고 영감 받을 수 있다.

조울사는 이 모든 불굴의 물질적 노력에 대한 영적 대응물을 네게 보여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너는 왜 **조울사**를 돕지 않는가? 네가 피조 실존으로서 일시적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조울사**가 시공우주의 능력을 가진 영적 진리로 너를 강화하도록, 너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네가 당혹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우주 생애의 영원한 전망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으로 하늘의 협조자가 너를 응원하도록, 너는 왜 격려하지 못하는가? 인생 여정을 에워싼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네가 허우적거리며 시간의 불리한 조건 한복판에서 수고하는 동안, 너는 왜 우주 관점으로 깨우침과 영감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 네 발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물질 통로를 걸어야 하더라도, **조울사**가 네 생각을 영성화 하도록, 너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유란시아의 상류 인간 종족들은 복잡하게 섞여 있으며;여러 인종과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혈통들의 혼합이다. 이런 혼합 본성은, **관찰자**들이 일생동안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주며, 죽은 뒤에 **조울사** 및 안내 스라빔 양쪽에 문제를 확실히 더해준다. 나는 **살빙톤**에 갔다가, 한 운명 안내자가 그 필사 상대자에게 사역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상을 잠작하라는 공식 성명서를 제시하는 것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스라빔은 이렇게 말했다:

7. THE ADJUSTER'S PROBLEM

111:7.1 (1223.3) Uncertainty with security is the essence of the Paradise adventure — uncertainty in time and in mind, uncertainty as to the events of the unfolding Paradise ascent; security in spirit and in eternity, security in the unqualified trust of the creature son in the divine compassion and infinit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uncertainty as an inexperienced citizen of the universe; security as an ascending son in the universe mansions of an all-powerful, all-wise, and all-loving Father.

111:7.2 (1223.4) May I admonish you to heed the distant echo of the Adjuster's faithful call to your soul? The indwelling Adjuster cannot stop or even materially alter your career struggle of time; the Adjuster cannot lessen the hardships of life as you journey on through this world of toil. The divine indweller can only patiently forbear while you fight the battle of life as it is lived on your planet; but you could, if you only would — as you work and worry, as you fight and toil — permit the valiant Adjuster to fight with you and for you. You could be so comforted and inspired, so enthralled and intrigued, if you would only allow the Adjuster constantly to bring forth the pictures of the real motive, the final aim, and the eternal purpose of all this difficult, uphill struggle with the commonplace problems of your present material world.

111:7.3 (1223.5) Why do you not aid the Adjuster in the task of showing you the spiritual counterpart of all these strenuous material efforts? Why do you not allow the Adjuster to strengthen you with the spiritual truths of cosmic power while you wrestle with the temporal difficulties of creature existence? Why do you not encourage the heavenly helper to cheer you with the clear vision of the eternal outlook of universal life as you gaze in perplexity at the problems of the passing hour? Why do you refuse to be enlightened and inspired by the universe viewpoint while you toil amidst the handicaps of time and flounder in the maze of uncertainties which beset your mortal life journey? Why not allow the Adjuster to spiritualize your thinking, even though your feet must tread the material paths of earthly endeavor?

111:7.4 (1223.6) The higher human races of Urantia are complexly admixed; they are a blend of many races and stocks of different origin. This composite nature renders it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onitors to work efficiently during life and adds definitely to the problems of both the Adjuster and the guardian seraphim after death. Not long since I was present on Salvington and heard a guardian of destiny present a formal statement in extenuation of the difficulties of ministering to her mortal subject. This seraphim said:

“내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은, 내 상대자가 두 가지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이었는데, 이 갈등은: 큰 뜻을 이루려는 충동이 동물적 나태함으로 방해받음; 열등한 인종의 본능으로 방해받는 우수한 민족들의 이상{理想}; 원시 유전형질의 충동으로 상쇄되는 탁월한 정신의 고상한 목적;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근시안적 속성으로 인해 휘방 받는, **관찰자**의 멀리_내다보는 장거리 전망; 물질 본성의 욕구와 갈망 때문에 변경되는, 상승하는 존재의 점진적 계획; 진화하는 인종의 화학_에너지 지시로 인해 삭제된 우주 지성의 섬광; 동물적 감정으로 인해 방해받는 천사의 충동; 본능적 성향 때문에 소멸되는 지능의 단련; 인종의 누적된 경향으로 인해 방해받은 개인 체험; 최선의 목적이 최악의 경향으로 빛을 잃음; 보편성을 중대히 여김으로써 중화되는 천재성의 악동; 부정한 것의 타성으로 인해 지연된, 선한 것들의 진보; 악의 현존으로 인해 손상된, 아름다운 자의 예술;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중화된 건강의 회복력; 두려움이라는 독약으로 오염된 신앙의 우물; 슬픔의 물로 인해 쓴 맛을 갖게 된 기쁨의 샘; 예견된 기쁨이 비통한 현실로 인해 환멸을 느낌; 삶의 즐거움이 죽음의 슬픔에 늘 위협받음 등이었다. 그런 행성에서 그런 인생이라니! 그럼에도 이 혼은, **사고 조율사**의 늘_현존하는 재촉과 도움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행복과 성공을 성취했으며, 지금도 모론시아 재판정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111:7.5 (1223.7) “Much of my difficulty was due to the unending conflict between the two natures of my subject: the urge of ambition opposed by animal indolence; the ideals of a superior people crossed by the instincts of an inferior race; the high purposes of a great mind antagonized by the urge of a primitive inheritance; the long-distance view of a far-seeing Monitor counteracted by the nearsightedness of a creature of time; the progressive plans of an ascending being modified by the desires and longings of a material nature; the flashes of universe intelligence cancelled by the chemical-energy mandates of the evolving race; the urge of angels opposed by the emotions of an animal; the training of an intellect annulled by the tendencies of instinct; th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opposed by the accumulated propensities of the race; the aims of the best overshadowed by the drift of the worst; the flight of genius neutralized by the gravity of mediocrity; the progress of the good retarded by the inertia of the bad; the art of the beautiful besmirched by the presence of evil; the buoyancy of health neutralized by the debility of disease; the fountain of faith polluted by the poisons of fear; the spring of joy embittered by the waters of sorrow; the gladness of anticipation disillusioned by the bitterness of realization; the joys of living ever threatened by the sorrows of death. Such a life on such a planet! And yet, because of the ever-present help and urge of the Thought Adjuster, this soul did achieve a fair degree of happiness and success and has even now ascended to the judgment halls of mansonia.”

111:7.6 (1224.1)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112편. 인격의 생존

⇨ 111

유란시아 책

113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2편
인격의 생존

섹션

소개

1. 인격과 실체
2. 자아
3. 죽는 현상
4. 죽음 이후의 조율사
5. 인간 자아의 생존
6. 모론티아 자아
7. 조율사 융합

PAPER 112
PERSONALITY SURVIVAL

SECTIONS

Introduction

1. Personality and Reality
2. The Self
3. The Phenomenon of Death
4. Adjusters after Death
5. Survival of the Human Self
6. The Morontia Self
7. Adjuster Fusion

소개

진화하는 행성들은 인간이 기원되는 구체이며,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가 시작되는 세계다. **유란시아**는 너의 출발지점이며; 여기서 너와 너의 신성한 **사고 조율사**가 일시적으로 합동하고 있다. 너는 완전한 안내자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네가 시간의 경주를 진지하게 달려가고, 신앙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오랜 세월에 대한 보상은 네 것이 될 것이며; 너는 너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와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진짜 인생, 즉 상승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며, 너의 현재 필사 상태는 거기에 이르는 접근로{接近路}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앞에 펼쳐지는 영원 속에서, 너의 고양되고 진취적인 사명이 완결성취자로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속되는 시대들 내내 그리고 진화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한 부분이 네게 남게 되는데, 그것이 -- 변화에 직면해서도 불변하는 -- 인격이다.

인격을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겠지만, 인격에 관해 알려진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1. 인격은, **만유의 아버지** 자신이, 또는 **아버**

INTRODUCTION

112:0.1 (1225.1) THE evolutionary planets are the spheres of human origin, the initial worlds of the ascending mortal career. Urantia is your starting point; here you and your divine Thought Adjuster are joined in temporary union. You have been endowed with a perfect guide; therefore, if you will sincerely run the race of time and gain the final goal of faith, the reward of the ages shall be yours; you will be eternally united with your indwelling Adjuster. Then will begin your real life, the ascending life, to which your present mortal state is but the vestibule. Then will begin your exalted and progressive mission as finalizers in the eternity which stretches out before you. And throughout all of these successive ages and stages of evolutionary growth, there is one part of you that remains absolutely unaltered, and that is personality — permanence in the presence of change.

112:0.2 (1225.2) While it would be presumptuous to attempt the definition of personality, it may prove helpful to recount some of the things which are known about personality:

- 112:0.3 (1225.3) 1. Personality is that quality in reality

지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공동 행위자**가 증여하는, 실체 속에 있는 그 자질이다.

2. 인격은 정신 또는 영을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증여될 수 있다.

3. 인격은 전제{前提}된 인과관계라는 족쇄에 전적으로 종속되지는 않는다. 인격은, 상대적으로 창조적 또는 공동_창조적이다.

4.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에게 증여됐을 때, 인격은, 정신의 중계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_질료를 지배하려고 애쓰게 만든다.

5. 인격은, 정체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다.

6. 인력에 질적 및 양적 반응을 나타내는 세 가지 에너지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오직 인격 회로에 대하여 질적 반응만 나타낸다.

7.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인격은 바뀌지 않는다.

8. 인격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곧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자유 의지를 바칠 수 있다.

9. 인격의 특징은, 도덕성이다--곧 다른 인간들과 상대적 관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인격은 행동 수준을 식별하며, 그것들 사이를 선택적으로 분간한다.

10. 인격은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독특한데: 시간과 공간에서 독특하며;영원 속에서 그리고 **낙원**에서 독특하며;증여될 때 독특하며--곧 전혀 중복됨이 없으며;실존하는 순간마다 독특하며;**하나님**과 관련해서 독특하다--그는 인격자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지만, 그들을 함께 합치지도 않는데, 그들은 합쳐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연합할 수 있지만 합쳐질 수는 없다.

11. 인격은 다른_인격의 현존에 직접 반응한다.

12. 인격은 영에 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처럼 **아들**과 갖는 관계에서 **아버지**가 우선함을 보여준다.(정신을 영에 더할 필요는 없다.)

13. 인격은, 필사자가 죽은 뒤에, 생존하는 혼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생존할 것이다. **조울사**와 인격은 변함이 없으며;(혼 속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변화, 즉 계속되는 진화에 불과하며;이 변화가(곧 성숙이) 멈춘다면, 혼도 멈출 것이다.

14. 인격은 시간을 독특하게 의식하며, 이것은 정신이나 영이 시간을 감지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which is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or by the Conjoint Actor, acting for the Father.

112:0.4 (1225.4) 2. It may be bestowed upon any living energy system which includes mind or spirit.

112:0.5 (1225.5) 3. It is not wholly subject to the fetters of antecedent causation. It is relatively creative or cocreative.

112:0.6 (1225.6) 4. When bestowed upon evolutionary material creatures, it causes spirit to strive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112:0.7 (1225.7) 5. Personality, while devoid of identity, can unify the identity of any living energy system.

112:0.8 (1225.8) 6. It discloses only qualitative response to the personality circuit in contradistinction to the three energies which show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ponse to gravity.

112:0.9 (1225.9) 7. Personality is changeless in the presence of change.

112:0.10 (1225.10) 8. It can make a gift to God — dedication of the free will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112:0.11 (1225.11) 9. It is characterized by morality — awareness of relativity of relationship with other persons. It discerns conduct levels and choosingly discriminates between them.

112:0.12 (1225.12) 10. Personality is unique, absolutely unique: It is unique in time and space; it is unique in eternity and on Paradise; it is unique when bestowed — there are no duplicates; it is unique during every moment of existence; it is unique in relation to God —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neither does he add them together, for they are nonaddable — they are associable but nontotalable.

112:0.13 (1226.1) 11. Personality responds directly to other-personality presence.

112:0.14 (1226.2) 12. It is one thing which can be added to spirit, thus illustrating the primacy of the Father in relation to the Son. (Mind does not have to be added to spirit.)

112:0.15 (1226.3) 13. Personality may survive mortal death with identity in the surviving soul. The Adjuster and the personality are chang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e soul) is nothing but change, continuing evolution; and if this change (growth) ceased, the soul would cease.

112:0.16 (1226.4) 14. Personality is uniquely conscious of time, and this is something other than the time perception of mind or spirit.

1. 인격과 실체

1. PERSONALITY AND REALITY

인격은 잠재적으로 영원한 자질인데, **만유의 아버지**께서 피조물에게 증여하신다. 그런 신성한 선물은, 낮은 유한자부터 가장 높은 유한절대자까지, 심지어 절대자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준 및 연속되는 우주 상황에서 작용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처럼 인격은 세 시공우주 수준에서, 즉 세 우주 국면에서 실행한다:

1. **위치 상태.** 인격은, 지방우주,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2. **의미 상태.** 인격은, 유한자, 유한절대자의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에 접촉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3. **가치 상태.** 인격은, 물질 존재, 모론시아 존재, 및 영적 존재의 진보하는 영역들에서 체험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격은 시공우주 차원의 완전하게 된 실행 범위를 갖는다. 유한한 인격 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 **길이는** 진보--곧 공간을 통하고 시간을 따르는 움직임--, 즉 진화의 본질과 방향을 나타낸다.

2. **수직의 깊이는**, 유기체의 본능적 욕구와 성향, 즉 변화하는 자아_실행 수준들 및 환경에 반응하는 일반 현상을 포함한다.

3. **넓이는**, 조정하고, 연합하고, 자아성을 조직하는 분야를 포함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증여된 인격 유형은, 자아를 표현하는, 즉 인격자를 실현하는 일곱 차원의 잠재성을 갖는다. 이런 여러 차원의 현상은, 유한 수준에서 셋으로, 유한절대 수준에서 셋으로, 그리고 절대 수준에서 하나로 실현될 수 있다. 준절대 수준에서는, 이 일곱째 차원, 즉 전체성 차원을, 인격이라는 사실로서 체험할 수 있다. 최상의 이 차원은, 연합할 수 있는 절대이며, 무한하지는 않아도, 절대 존재들이 준무한(準無限)에서 침투할 수 있도록 차원상으로 잠재적이다.

인격의 유한 차원은, 시공우주의 길이, 깊이, 및 넓이와 상관이 있다. 길이는 의미를 나타내며; 깊이는 가치를 의미하고; 넓이는 통찰력--곧 시공우주 실체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모론시아 수준에서는 물질 수준의 이 모든 유한 차원이 크게 강화되며, 어떤 새 차원의 가치는 실현이 가능하다. 모론시아 수준에서 증가된 이 모든 차원의 체험은, 모타의 영향을 통해서, 또한

112:1.1 (1226.5) Personality is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upon his creatures as a potentially eternal endowment. Such a divine gift is designed to function on numerous levels and in successive universe situations ranging from the lowly finite to the highest absonite, even to the borders of the absolute. Personality thus performs on three cosmic planes or in three universe phases:

112:1.2 (1226.6) 1. *Position status.* Personality functions equally efficiently in the local universe, in the superuniver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112:1.3 (1226.7) 2. *Meaning status.* Personality performs effectively on the levels of the finite, the absonite, and even as impinging upon the absolute.

112:1.4 (1226.8) 3. *Value status.* Personality can be experientially realized in the progressive realms of the material,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112:1.5 (1226.9) Personality has a perfected range of cosmic dimensional performance. The dimensions of finite personality are three, and they are roughly functional as follows:

112:1.6 (1226.10) 1. *Length* represents direction and nature of progression — movement through space and according to time — evolution.

112:1.7 (1226.11) 2. *Vertical depth* embraces the organismal drives and attitudes, the varying levels of self-realization and the general phenomenon of reaction to environment.

112:1.8 (1226.12) 3. *Breadth* embraces the domain of co-ordination, association, and selfhood organization.

112:1.9 (1226.13) The type of personality bestowed upon Urantia mortals has a potentiality of seven dimensions of self-expression or person-realization. These dimensional phenomena are realizable as three on the finite level, three on the absonite level, and one on the absolute level. On subabsolute levels this seventh or totality dimension is experiential as the *fact* of personality. This supreme dimension is an associable absolute and, while not infinite, is dimensionally potential for subinfinite penetration of the absolute.

112:1.10 (1226.14) The finite dimensions of personality have to do with cosmic length, depth, and breadth. Length denotes meaning; depth signifies value; breadth embraces insight — the capacity to experience unchallengeable consciousness of cosmic reality.

112:1.11 (1227.1) On the morontia level all of these finite dimensions of the material level are greatly enhanced, and certain new dimensional values are realizable. All these enlarged dimensional

모론시아 수학의 기여로 인해, 최상의 차원, 즉 인격 차원으로 놀랍게 표현된다.

체험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는, 차원 수준과 영적 수준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한한 피조물이 기억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인격을 연구하는 데 필사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생명은 정말로 유기체와(곧 자아성과) 그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과정이다. 인격은, 정체성의 가치와 연속성의 의미를, 이 유기체와 환경의 연합에 나뉜다. 인격이 전체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충동{衝動}에 반응하는 현상은 단지 기계적 과정이 아님을 인식할 것이다. 기계작용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며; 유기체는 본질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참말이다.

육체적 생명은, 유기체 안에라기보다, 오히려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모두, 그런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원형{原型}들을 창조하고 확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지향적* 양상은, 목표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자아는,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환경과 의미 있는 접촉을 이룩한다. 유기체가 환경과 그런 의미심장한 접촉(곧 추진력에 대한 반응)을 이루고자 하는 역량과 자발성은, 인격 전체의 입장을 나타낸다.

인격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잘 작동할 수 없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피조물이며; 소속되려는 열망으로 지배된다. “혼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옳다.

그러나 살아서 활동하는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격 개념은, 여러 관계를 통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뜻하며; 여러 관계의 조화는 물론, 실체의 모든 요소의 통합을 의미한다. 관계는 두 객체 사이에 존재하지만, 셋 또는 그 이상의 객체는 *체계*를 이루며, 그런 체계는 단순히 확대되고 복잡하게 된 관계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이 차이는 지극히 중요한데, 시공우주 체계에서, 각 구성원이 오직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전체의 개체성을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간 유기체의 경우에, 그 유기체의 부분들을 합치면 자아성--곧 개체성--을 이루지만, 그런 과정은 인격과 어떤 관련도 없는데, 시공우주 실체들에 관련된 바와 같이, 인격은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다.

집합체에서는 부분들이 합산되며; 체계에서는 부분들이 *배열*된다. 체계들은 조직으로 인해--

experiences of the morontia level are marvelously articulated with the supreme or personality dimension through the influence of mota and also because of the contribution of morontia mathematics.

112:1.12 (1227.2) Much trouble experienced by mortals in their study of human personality could be avoided if the finite creature would remember that dimensional levels and spiritual levels are not co-ordinated in experiential personality realization.

112:1.13 (1227.3) Life is really a process which takes place between the organism (selfhood) and its environment. The personality imparts value of identity and meanings of continuity to this organismal-environmental association. Thus it will be recognized that the phenomenon of stimulus-response is not a mere mechanical process since the personality functions as a factor in the total situation. It is ever true that mechanisms are innately passive; organisms, inherently active.

112:1.14 (1227.4) Physical life is a process taking place not so much within the organism as *between* the organism and the environment. And every such process tends to create and establish organismal patterns of reaction to such an environment. And all such *directive patterns* are highly influential in goal choosing.

112:1.15 (1227.5) It is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that the self and the environment establish meaningful contact.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organism to make such significant contacts with environment (response to a drive) represents the *attitude* of the whole personality.

112:1.16 (1227.6) Personality cannot very well perform in isolation. Man is innately a social creature; he is dominated by the craving of belongingness. It is literally true, “No man lives unto himself.”

112:1.17 (1227.7) But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as the meaning of the whole of the living and functioning creature means much more than the integration of relationships; it signifies the *unification* of all factors of reality as well as co-ordination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exist between two objects, but three or more objects eventuate a *system*, and such a system is much more than just an enlarged or complex relationship. This distinction is vital, for in a cosmic system the individual members are not connected with each other except in relation to the whole and through the individuality of the whole.

112:1.18 (1227.8) In the human organism the summation of its parts constitutes selfhood — individuality — but such a process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personality, which is the unifier of all these factors as related to cosmic realities.

112:1.19 (1227.9) In aggregations parts are added; in systems parts are *arranged*. Systems are

곧 위치상의 가치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체계 내에서는 모든 요소가 시공우주 위치를 갖는다. 나쁜 체계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모자라거나 바뀌어 있다--곧 혼란돼 있다. 인간 체계 안에서는, 바로 인격이 모든 활동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과 독창성의 성질을 수여한다.

2. 자아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 자아성{自我性} 연구에 도움 될 것이다:

1. 육체적 체계들은 종속적이다.
2. 지적 체계들은 대등하다.
3. 인격은 상위{上位}에 있다.
4. 내주하는 영적 세력은, 지휘하는 잠재성을 지녔다.

모든 자아성 개념에서, 산다는 사실이 먼저이고, 평가 또는 해석은 나중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먼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하여 *생각한다*. 시공우주 질서에서 통찰력이 선견{先見}보다 앞선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우주의 사실이, 인간 인격의 모든 의미를 변화시켰고, 모든 가치를 영구히 바꿔버렸다. 단어의 참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의 경우든지 신의 경우든지, 아니면 인간의 경우인 동시에 신의 경우든지, 모든 인격체들의 상호 관심을 의미한다. 자아의 부분들은 여러 방법으로--곧 생각하기, 느끼기, 소망하기로--작용할지 모르지만, 전{全} 인격의 조화된 속성들은 오직 지성적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모든 능력은,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다른 존재를, 한 인간이 진심으로 그리고 이타심{利他心}으로 사랑할 때, 필사 정신의 영적 재능과 연합된다.

실체에 관한 필사자의 모든 개념은, 인간의 인격이 실체임을 가정{假定}하는 데 기초를 두며; 초인간 실체에 대한 모든 개념은, 인간의 인격이 어떤 관련된 영적 실체들 및 신성한 인격체들의 시공우주 실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실체들 속에서 겪는 체험에 기초를 둔다. 인격을 제외하고, 인간 체험에서 비영적{非靈的}인 것은 무엇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필사적 사람이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다른 인격자들과 갖는 모든 참된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리고 **신격**의 인격과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은,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다.

인격의 소유는,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는데, 이는 자아성의 통일과 인격의 자아_의식이, 초물질 세계가 부여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한 필사 유물론자가 초물질 실체의 실존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인간 정신 속에 영의 합성과 시공우주 의식{意識}이 현존함을 증

significant because of organization — positional values. In a good system all factors are in cosmic position. In a bad system something is either missing or displaced — deranged. In the human system it is the personality which unifies all activities and in turn imparts the qualities of identity and creativity.

2. THE SELF

112:2.1 (1227.10) It would be helpful in the study of selfhood to remember:

112:2.2 (1227.11) 1. That physical systems are subordinate.

112:2.3 (1227.12) 2. That intellectual systems are co-ordinate.

112:2.4 (1227.13) 3. That personality is superordinate.

112:2.5 (1227.14) 4. That the indwelling spiritual force is potentially directive.

112:2.6 (1228.1) In all concepts of selfhoo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fact of life comes first, its evaluation or interpretation later. The human child first *lives* and subsequently *thinks* about his living. In the cosmic economy insight precedes foresight.

112:2.7 (1228.2) The universe fact of God's becoming man has forever changed all meanings and altered all values of human personality. In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love connotes mutual regard of whole personalities, whether human or divine or human *and* divine. Parts of the self may function in numerous ways — thinking, feeling, wishing — but only the co-ordinated attributes of the whole personality are focused in intelligent action; and all of these powers ar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endowment of the mortal mind when a human being sincerely and unselfishly loves another being, human or divine.

112:2.8 (1228.3) All mortal concepts of reality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actuality of human personality; all concepts of superhuman realities a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human personality with and in the cosmic realities of certain associated spiritual entities and divine personalities. Everything nonspiritual in human experience, excepting personality, is a means to an end. Every true relationship of mortal man with other persons — human or divine — is an end in itself. And such fellowship with the personality of Deity is the eternal goal of universe ascension.

112:2.9 (1228.4)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identifies man as a spiritual being since the unity of selfhood and th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ity are endowments of the supermaterial world. The very fact that a mortal materialist can deny the existence of supermaterial realities in and of itself

명하고, 그것들이 작용함을 가리킨다.

물질과 사고{思考} 사이에는 거대한 시공우주 간격이 존재하며, 물질 정신과 영적 사랑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 켈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기계론적인 전자{電子}의 결합이나 유물론의 에너지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으로도, 자아_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정신이 실체의 궁극적 분석을 추구함에 따라서, 물질은 물질적 감각에게 자취를 감추지만, 정신에게는 여전히 실체로서 남는다. 물질이 사라진 후에 남아 있는 바로 그 실체를 영적 통찰력이 추구하고 궁극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추구할 때, 실체는 정신에게 자취를 감췄지만, 영의 통찰력은 영적 본성을 지닌 시공우주의 실체들과 최상의 가치를 여전히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철학에게 길을 비켜주고, 한편 철학은 참된 영적 체험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결론에 굴복해야 한다. 사색{思索}은 지혜에게 무릎을 꿇으며, 개화되고 사라진 것은 경배 속에서 지혜는 사라진다.

과학에서는 인간 자아가 물질적 세계를 관찰하며; 철학은 물질적 세계의 이런 관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며; 종교, 즉 진정한 영적 체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에너지 물질의 이런 모든 상대적 합성의 관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 즉 시공우주 실체를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순전한 유물론에 기초해서 우주 철학을 세우는 일은, 처음에 인간이 의식하는 체험 속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이 실체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자는 관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평가는 평가 받는 바로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초월하기를 요구한다.

시간세계에서, 생각하기가 지혜로 인도하고, 지혜가 경배로 인도하며; 영원 속에서는, 경배가 지혜로 인도하고, 지혜는 결국 사고{思考}를 완결한다.

진화하는 자아가 통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의 특성에 타고나는데: 즉 기초 에너지, 기본 세포조직, 근본적인 화학적 전면통제, 최상의 관념, 최상의 동기, 최상의 목표, 그리고 **낙원**에서 증여된 신성한 영--곧 사람의 영적 본성이 자아_의식하는 비밀--이다.

시공우주의 진화하는 목적은, 영이 갈수록 더 지배하는 것, 즉 **사고 조율사**의 가르침과 인도에 자발적으로 반응함으로, 인격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 및 초인간의 인격은 본래부터 시공우주 자질이 그 특징이며, 이 자질을 “지배의 진화”라고 불러도 좋은데, 인격 자체와 그 환경을 통제하는 힘이 확대되는 것이다.

demonstrates the presence, and indicates the working, of spirit synthesis and cosmic consciousness in his human mind.

112:2.10 (1228.5) There exists a great cosmic gulf between matter and thought, and this gulf is immeasurably greater between material mind and spiritual love. Consciousness, much less self-consciousness, cannot be explained by any theory of mechanistic electronic association or materialistic energy phenomena.

112:2.11 (1228.6) As mind pursues reality to its ultimate analysis, matter vanishes to the material senses but may still remain real to mind. When spiritual insight pursues that reality which remains after the disappearance of matter and pursues it to an ultimate analysis, it vanishes to mind, but the insight of spirit can still perceive cosmic realities and supreme values of a spiritual nature. Accordingly does science give way to philosophy, while philosophy must surrender to the conclusions inherent in genuine spiritual experience. Thinking surrenders to wisdom, and wisdom is lost in enlightened and reflective worship.

112:2.12 (1228.7) In science the human self observes the material world; philosophy is the observation of this observation of the material world; religion, true spiritual experience, is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the cosmic reality of the observation of the observation of all this relative synthesis of the energy materials of time and space. To build a philosophy of the universe on an exclusive materialism is to ignore the fact that all things material are initially conceived as real in the experience of human consciousness. The observer cannot be the thing observed; evaluation demands some degree of transcendence of the thing which is evaluated.

112:2.13 (1228.8) In time, thinking leads to wisdom and wisdom leads to worship; in eternity, worship leads to wisdom, and wisdom eventuates in the finality of thought.

112:2.14 (1229.1)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self is inherent in the qualities of its constitutive factors: the basic energies, the master tissues, the fundamental chemical overcontrol, the supreme ideas, the supreme motives, the supreme goals, and the divine spirit of Paradise bestowal — the secret of the self-consciousness of man's spiritual nature.

112:2.15 (1229.2) The purpose of cosmic evolution is to achieve unity of personality through increasing spirit dominance, volitional response to the teaching and leading of the Thought Adjuster. Personality, both human and superhuman, is characterized by an inherent cosmic quality which may be called “the evolution of dominance,” the expansion of the control of both itself and its

한때 인간이었던 상승하는 인격체는, 자아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에서, 의지가 점점 더 지배하는 중대한 두 국면을 거친다:

1. 시공우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우주를 지배함과 아울러 정체성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기법을 통해서, 자아_실현을 증대하는 완결성취자_이전{以前} 체험,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체험.

2.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한 차원{次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성체들에게, 체험하는 **지존하신 분**을 드러냄으로써 자아_실현을 창조적으로 확장하는, 완결성취자_이후 체험,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체험.

하강하는 인격체들은, **지존 신격**, **궁극 신격**, 및 **절대 신격**의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대된 능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우주 모험을 통해서 비슷한 체험을 획득한다.

물질적 자아, 즉 인간 정체성의 자아_실체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 물질 생명을 운반하는 수단이 계속 작용하는 데, 그리고 에너지와 지능의 불안정한 평형{平衡}이 계속 실존하는 데 의존하며, **유란시아**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아성, 즉 죽는 체험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성은, 오직 일시적 생명 운반체로부터--곧 물질적 육신으로부터-- 더 영구적이고 불멸적인 본성을 지닌 모론시아 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혼이 영 실체로 주입되고 결국 영 실체 상태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까지, 진화하는 인격 정체성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잠재성을 확립함으로써 겨우 진화된다. 물질적 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정체성확인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성실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뤄진다.

3. 죽는 현상

유란시아인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죽음, 즉 생명 에너지의 물리적 중단만 알고 있으나; 인격 생존과 관련해서 본다면 정말로 세 가지가 있다:

1. **영적 죽음**(**공혼의 죽음**). 만일 필사적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생존하는 스라뱀과 **조울사**의 공동 견해에 따라서, 영적 파멸, 즉 모론시아 면에서 파산했다는 선고가 내려지고, 그런 일치된 권고가 **우버사**에 기록되고 나서, **검열관**들 및 그들의 반사하는 동역자들이 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로 **오르본톤** 통치자들은 내주하는 **관찰자**를 즉시 해방시키라고 명령한다. 그

environment.

112:2.16 (1229.3) An ascending onetime human personality passes through two great phases of increasing volitional dominance over the self and in the universe:

112:2.17 (1229.4) 1. The prefinaliter or God-seeking experience of augmenting the self-realization through a technique of identity expansion and actualization together with cosmic problem solving and consequent universe mastery.

112:2.18 (1229.5) 2. The postfinaliter or God-revealing experience of the creative expansion of self-realization through revealing the Supreme Being of experience to the God-seeking intelligences who have not yet attained the divine levels of Godlikeness.

112:2.19 (1229.6) Descending personalities attain analogous experiences through their various universe adventures as they seek for enlarged capacity for ascertaining and executing the divine wills of the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Deities.

112:2.20 (1229.7) The material self, the ego-entity of human identity, is dependent during the physical life on the continuing function of the material life vehicle, on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unbalanced equilibrium of energies and intellect which, on Urantia, has been given the name *life*. But selfhood of survival value, selfhood that can transcend the experience of death, is only evolved by establishing a potential transfer of the seat of the identity of the evolving personality from the transient life vehicle — the material body — to the more enduring and immortal nature of the morontia soul and on beyond to those levels whereon the soul becomes infused with, and eventually attains the status of, spirit reality. This actual transfer from material association to morontia identification is effected by the sincerity, persistence, and steadfastness of the God-seeking decisions of the human creature.

3. THE PHENOMENON OF DEATH

112:3.1 (1229.8) Urantians generally recognize only one kind of death, the physical cessation of life energies; but concerning personality survival there are really three kinds:

112:3.2 (1229.9) 1. *Spiritual (soul) death*. If and when mortal man has finally rejected survival, when he has been pronounced spiritually insolvent, morontially bankrupt, in the conjoint opinion of the Adjuster and the surviving seraphim, when such co-ordinate advice has been recorded on Uversa, and after the Censors and their reflective associates have verified these findings, thereupon do the rulers of Orvonton order the immediate

려나 **조울사**가 이렇게 해방되는 것은, **조울사**를 포기한 그 개인과 관련된 개인 스라빔 또는 집단 스라빔의 임무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죽음은, 육체적 장치와 정신적 장치의 살아있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존속되는 것에 상관없이, 최종 의미를 갖는다. 시공우주 관점에서 그 필사자는 이미 죽었으며; 계속되는 생명은, 다만 시공우주 에너지의 물질적 잔여 운동력이 지속됨을 의미할 뿐이다.

2. **지적 죽음(곧 정신의 죽음)**. 높은 보조 사역에 관련된 중대한 회로들이, 지능의 착란을 통해서, 또는 뇌의 구조 중에서 일부가 파괴됨으로 인해 분열될 때, 그리고 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내주하는 **조울사**는 즉시 해방돼서 **디비닝톤**으로 떠난다. 우주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_작용의 본질적 정신 회로들이 파괴될 때에는 언제든지, 필사 인격체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 육체의 생명 장치가 계속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것이다. 의지가 작용하는 정신을 제외한 육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만, 그런 개인의 혼{魂}은, 인간 의지가 전에 결정한 바에 따라 생존할 수 있다.

3. **육체적 죽음(곧 몸과 정신의 죽음)**. 죽음이 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정신이 지성적 장치로써 작용하기를 멈출 때, 즉 측정 가능한 뇌 에너지가 그 주기적 생명 박동을 멈출 무렵까지, **조울사**는 정신의 요새 속에 남아 있다. 이 죽음이 있는 후에, **조울사**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떠나는데, 여러 해 전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이 아무 예식 없이, **우버사**를 경유해서 **디비닝톤**으로 나아간다.

죽은 뒤에 물질적 육체는 그것이 유래했던 원소계(元素界)로 돌아가지만, 생존하는 인격의 두 가지 비물질 요소는 존속하는데: 선재{先在}하는 **사고 조울사**는, 필사자 생애의 기억을 기록한 이력서와 함께 **디비닝톤**으로 나아가며; 또한 죽은 인간의 불멸하는 모론시아 혼은 운명 수호자의 보호 속에 남는다. 혼의 이 국면과 형태, 한때 활동적이었으나 이제는 정지된 정체성 형식은, 모론시아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되는 데 필수적이며; 그 **조울사**와 혼이 재결합함으로써, 생존하는 인격이 다시 조립되는데, 모론시아 부활 때에 너에게 의식이 돌아오도록 만든다.

개인 스라빔 수호자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체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인격을 부활시키는 동일한 업무를, 집단 보호자가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스라빔은 인격을 재조립하는 데 필수다.

사고 조울사는 죽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인격을 잃지만, 정체성은 잃지 않으며; 인간 상대자는

release of the indwelling Monitor. But this release of the Adjuster in no way affects the duties of the personal or group seraphim concerned with that Adjuster-abandoned individual. This kind of death is final in its significance irrespective of the temporary continuation of the living energies of the physical and mind mechanisms. From the cosmic standpoint the mortal is already dead; the continuing life merely indicates the persistence of the material momentum of cosmic energies.

112:3.3 (1230.1) 2. *Intellectual (mind) death*. When the vital circuits of higher adjutant ministry are disrupted through the aberrations of intellect or because of the partial destruction of the mechanism of the brain, and if these conditions pass a certain critical point of irreparability, the indwelling Adjuster is immediately released to depart for Divinington. On the universe records a mortal personality is considered to have met with death whenever the essential mind circuits of human will-action have been destroyed. And again, this is death, irrespective of the continuing function of the living mechanism of the physical body. The body minus the volitional mind is no longer human, but according to the prior choosing of the human will, the soul of such an individual may survive.

112:3.4 (1230.2) 3. *Physical (body and mind) death*. When death overtakes a human being, the Adjuster remains in the citadel of the mind until it ceases to function as an intelligent mechanism, about the time that the measurable brain energies cease their rhythmic vital pulsations. Following this dissolution the Adjuster takes leave of the vanishing mind, just as unceremoniously as entry was made years before, and proceeds to Divinington by way of Uversa.

112:3.5 (1230.3) After death the material body returns to the elemental world from which it was derived, but two nonmaterial factors of surviving personality persist: The pre-existent Thought Adjuster, with the memory transcription of the mortal career, proceeds to Divinington; and there also remains, in the custody of the destiny guardian, the immortal morontia soul of the deceased human. These phases and forms of soul, these once kinetic but now static formulas of identity, are essential to repersonalization on the morontia worlds; and it is the reunion of the Adjuster and the soul that reassembles the surviving personality, that reconsciousizes you at the time of the morontia awakening.

112:3.6 (1230.4) For those who do not have personal seraphic guardians, the group custodians faithfully and efficiently perform the same service of identity safekeeping and personality resurrection. The seraphim are indispensable to the reassembly of personality.

112:3.7 (1230.5) Upon death the Thought Adjuster temporarily loses personality, but not identity; the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지만, 인격은 잃지 않으며; 맨션 세계들에서 이 둘은 영원히 형태화되면서 재결합한다. 떠났던 **사고 조울사**는 전에 내주했던 존재로써는 이 땅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인격은 인간의 의지 없이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 **조울사**와 분리된 인간이 죽은 후에는 실제적인 정체성을 결코 나타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지구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조울사**와 분리된 그런 혼은, 죽음 속에 길게 또는 짧게 잠들어 있는 동안 완전히, 그리고 절대로 의식이 없다. 생존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인격체들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인격이나 역량도 발휘될 수 없다. 맨션 세계로 가는 자는, 자신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거꾸로 소식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 섭리시대 동안에는, 우주 전역에서 그런 소통이 정책상 금지돼 있다.

human subject temporarily loses identity, but not personality; on the mansion worlds both reunite in eternal manifestation. Never does a departed Thought Adjuster return to earth as the being of former indwelling; never is personality manifested without the human will; and never does a dis-Adjusted human being after death manifest active identity or in any manner establish communication with the living beings of earth. Such dis-Adjusted souls are wholly and absolutely unconscious during the long or short sleep of death. There can be no exhibition of any sort of personality or ability to engage in communications with other personalities until after completion of survival. Those who go to the mansion worlds are not permitted to send messages back to their loved ones. It is the policy throughout the universes to forbid such communication during the period of a current dispensation.

4. 죽음 이후의 조울사

물질적, 지적, 또는 영적 본성의 죽음이 발생될 때, **조울사**는 필사자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디비닝톤**을 향해서 떠난다.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본부에서, 어떤 반사하는 접촉이 두 정부의 감독관들과 이뤄지며,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번호로, **관찰자**가 나갔다고 등록된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내주했던 정신의 영적 가치와 모론시아 의미를 지닌 **조울사**의 이중(二重) 사본에 담긴 대로, **우주 검열관**들은 그 인간 생애의 개요(概要)를 소유할 수 있다. **검열관**들은, 죽은 인간의 생존하는 성품과 영적 특성에 관한 **조울사**의 소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자료는, 스랍의 기록과 함께, 관련된 그 개인이 판결을 받을 때 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또한, 어떤 필사자가 죽은 후에 상승자로서 즉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고, 행성의 섭리시대가 정식으로 종료되기 전에 맨션 세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연방우주 명령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옮겨진 개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육체가 죽은 후에, 해방된 **조울사**는 즉시 **디비닝톤**이라는 고향 구체로 간다. 생존하는 필사자가 사실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자세한 것은, 그 인간이 자신의 개인 권한으로 맨션 세계들을 향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한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에 대한 섭리시대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주로 달려 있다.

4. ADJUSTERS AFTER DEATH

112:4.1 (1231.1) When death of a material, intellectual, or spiritual nature occurs, the Adjuster bids farewell to the mortal host and departs for Divinington.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a reflective contact is made with the supervisors of both governments, and the Monitor is registered out by the same number that recorded entry into the domains of time.

112:4.2 (1231.2) In some way not fully understood, the Universal Censors are able to gain possession of an epitome of the human life as it is embodied in the Adjuster's duplicate transcription of the spiritual values and morontia meanings of the indwelt mind. The Censors are able to appropriate the Adjuster's version of the deceased human's survival character and spiritual qualities, and all this data, together with the seraphic records, is available for presentation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the individual concerned. This information is also used to confirm those superuniverse mandates which make it possible for certain ascenders immediately to begin their morontia careers, upon mortal dissolution to proceed to the mansion worlds ahead of the formal termination of a planetary dispensation.

112:4.3 (1231.3) Subsequent to physical death, except in individuals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the released Adjuster goes immediately to the home sphere of Divinington. The details of what transpires on that world during the time of awaiting the factual reappearance of the surviving mortal depend chiefly on whether the human being ascends to the mansion worlds in his own individual right or awaits a dispensational summoning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a

필사 동역자가 한 섭리시대의 끝에 다시 인격 화될 무리에 속해 있다면, **조울사**는 전에 복무했던 체계의 맨션 세계로 즉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선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할당된 임무 가운데 하나에 임하게 될 것이다:

1. 알려지지 않은 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관찰자** 반열로 소집됨.

2. **낙원** 체제를 관찰하는 데 얼마 동안 배정됨.

3. **디비닝톤**의 여러 훈련 학교 가운데 하나에 입학함.

4. **낙원** 세계들에 속한, **아버지**의 회로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신성시되는 다른 구체 가운데 하나에, 견습 관찰자로서 얼마동안 머물러 있음.

5. **인격화된 조울사**들의 사자{使者}가 되는 근무에 배정됨.

6. 무체험 집단에 속하는 **관찰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전념하는 **디비닝톤** 학교에서 부{副} 교관이 됨.

7. 짝이었던 인간이 생존을 거부했을 것이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복무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한 집단을 선택하도록 배정됨.

만약, 죽음이 너에게 닥칠 때, 네가 셋째 케도 또는 더 높은 영역을 달성했고, 그리하여 개인 운명 수호자가 너에게 배정돼 있다면, 그리고 **조울사**가 제출한 생존하는 성품에 대하여 요약한 최종 이력서를, 운명 수호자가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면--곧 스라빔과 **조울사**가 그들이 작성한 생명 기록부와 추천서의 모든 항목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우주 검열관**들과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반사 동역자들이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얼버무리거나 보류함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 승진된 신분을 허락하는 명령을, **살빙톤**으로 가는 통신 회로를 통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번개처럼 하달하며, 그렇게 발표되면, 생존하는 그 혼을 맨션 세계의 부활실까지 즉시 통과시키라고, **네바돈**의 **주권자**의 법정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배운 바로는, 연기되지 않고 인간 개인이 생존한다면, **조울사**는, **디비닝톤**에 등록하고,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 앞으로 나아가며, 즉시 돌아와서, 배정된 연방우주와 지방우주의 **인격화된 조울사**들에게 포용되고, **디비닝톤**의 **인격화된 관찰자** 우두머리에게 승인받으며, 그 다음에는 즉시 “정체성 변화가 실현”되는데, 거기서부터 그는, 운명 수호자가 그 형태를 입안한 대로, 이 세상 출신 필사자의 생존하는 혼을 받도록 준비돼 있는 실제 인격 형태를 입고, 셋째 기간에, 맨션 세계에서 호출 받는다.

planetary age.

112:4.4 (1231.4) If the mortal associate belongs to a group that will be repersonalized at the end of a dispensation, the Adjuster will not immediately return to the mansion world of the former system of service but will, according to choice, enter upon one of the following temporary assignments:

112:4.5 (1231.5) 1. Be mustered into the ranks of vanished Monitors for undisclosed service.

112:4.6 (1231.6) 2. Be assigned for a period to the observation of the Paradise regime.

112:4.7 (1231.7) 3. Be enrolled in one of the many training schools of Divinington.

112:4.8 (1231.8) 4. Be stationed for a time as a student observer on one of the other six sacred spheres which constitute the Father's circuit of Paradise worlds.

112:4.9 (1231.9) 5. Be assigned to the messenger servi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s.

112:4.10 (1231.10) 6. Become an associate instructor in the Divinington schools devoted to the training of Monitors belonging to the virgin group.

112:4.11 (1231.11) 7. Be assigned to select a group of possible worlds on which to serve in the event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for believing that the human partner may have rejected survival.

112:4.12 (1231.12) If, when death overtakes you, you have attained the third circle or a higher realm and therefore have had assigned to you a personal guardian of destiny, and if the final transcript of the summary of survival character submitted by the Adjuster is unconditionally certified by the destiny guardian — if both seraphim and Adjuster essentially agree in every item of their life records and recommendations — if the Universal Censors and their reflective associates on Uversa confirm this data and do so without equivocation or reservation, in that event the Ancients of Days flash forth the mandate of advanced standing over the communication circuits to Salvington, and, thus released, the tribunals of the Sovereign of Nebadon will decree the immediate passage of the surviving soul to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worlds.

112:4.13 (1232.1) If the human individual survives without delay, the Adjuster, so I am instructed, registers at Divinington, proceeds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returns immediately and is embraced by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local universe of assignment, receives the recognition of the chief Personalized Monitor of Divinington, and then, at once, passes into the “realization of identity transition,” being summoned therefrom on the third period and on the mansion world in the

actual personality form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surviving soul of the earth mortal as that form has been projected by the guardian of destiny.

5. 인간 자아의 생존

자아성은, 물질이든지, 모론시아든지, 영적이든지, 시공우주 실체다. **인격**있는 존재의 실체성은, 스스로 홀로 행동하시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주 대행자를 통해서든지,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하신 것이다. 어떤 존재가 인격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공우주 유기체 안에서 그런 존재가 상대적으로 개별화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공우주는, 실제 단위들이 거의 무한대로 결합된 집합체이며, 그 단위들은 모두 전체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종속된다. 그러나 인격있는 그 존재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운명을 거부하는 실제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단편인 신성한 **사고 조율사**의 경우에 참인 것처럼, 인격의 경우에도 똑같이 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인격을 주신다. 사람의 인격은 영원하지만, 정체성으로 본다면 조건적으로 영원한 실체다. **아버지** 뜻에 응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격은 **신격**의 운명에 도달하겠지만, 사람은 그런 운명의 달성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 선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인격은 체험적 **신격**에 직접 도달하고, **지존하신 분**의 한 부분이 된다. 그 순환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개인적이며, 또한 체험적이다.

필사자의 정체성은, 우주에서 덧없는 일시적 _생명을 갖는 처지에 있으며; 계속되는 우주 현상이 되려고 인격체가 선택하는 한에서만 실제적이다. 이것이 사람과 에너지 사이의 근본 차이인데: 에너지 체계는 계속돼야 하고,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온통 관련돼 있다. **조율사**는 진실로 **낙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지만, 사람 자신은, 자신의 결정, 즉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그 통로를 찾아가야 한다.

인간은 오직 물질적 의미에서만 정체성을 갖는다. 물질 정신이 지능의 에너지 체계 안에서 작용하는 대로, 물질 정신이 자아의 그런 특성을 표현한다.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인간의 인격이 행동하고 그 의지가 선택하는 데 복종하도록 놓인 정신 궤도를, 그가 소유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태아가 일시적으로 모태에 붙어있는 단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질적이고 순전히 임시적인 형태화다. 시공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비교적 한 순간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사자의 인격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잠시 있는 물질_지능

5. SURVIVAL OF THE HUMAN SELF

^{112:5.1 (1232.2)} Selfhood is a cosmic reality whether material, morontial, or spiritual. The actuality of the *personal* is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acting in and of himself or through his manifold universe agencies. To say that a being is personal is to recognize the relative individuation of such a being within the cosmic organism. The living cosmos is an all but infinitely integrated aggregation of real units, all of which are relatively subject to the destiny of the whole. But those that are personal have been endowed with the actual choice of destiny acceptance or of destiny rejection.

^{112:5.2 (1232.3)} That which comes from the Father is like the Father eternal, and this is just as true of personality, which God gives by his own freewill choice, as it is of the divine Thought Adjuster, an actual fragment of God. Man's personality is eternal but with regard to identity a conditioned eternal reality. Having appeared in response to the Father's will, personality will attain Deity destiny, but man must choose whether or not he will be present at the attainment of such destiny. In default of such choice, personality attains experiential Deity directly, becoming a part of the Supreme Being. The cycle is foreordained, but man's participation therein is optional, personal, and experiential.

^{112:5.3 (1232.4)} Mortal identity is a transient time-life condition in the universe; it is real only in so far as the personality elects to become a continuing universe phenomenon. This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man and an energy system: The energy system must continue, it has no choice; but man has everything to do with determining his own destiny. The Adjuster is truly the path to Paradise, but man himself must pursue that path by his own deciding, his freewill choosing.

^{112:5.4 (1232.5)} Human beings possess identity only in the material sense. Such qualities of the self are expressed by the material mind as it functions in the energy system of the intellect. When it is said that man has identity, it is recognized that he is in possession of a mind circuit which has been placed in subordination to the acts and choosing of the will of the human personality. But this is a material and purely temporary manifestation, just as the human embryo is a transient parasitic stage of human life. Human beings, from a cosmic perspective, are born, live, and die in a relative instant of time; they are not enduring. But mortal

체계로부터 더 높은 모론시아_혼 체계로, 그 정체성의 자리를 옮겨주는 능력을 소유하는데, 그 혼은 **사고 조율사**와 연합해서, 인격을 명백히 나타내는 새 운반체로서 창조된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 능력, 즉 자유의지를 갖는 피조물 신분임을 가리키는 우주 표지{標識}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요, 최고의 시공우주 책임이다. 미래의 완결성취자의 영원한 운명은, 인간의 의지작용의 성실성에 달려 있으며; 신성한 **조율사**가 영원한 인격을 얻는 것은,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진실한가에 달려있으며;**만유의 아버지**가 새로이 상승하는 아들을 얻는 것은, 필사자의 선택이 충실한가에 달려있으며;**지존하신 분**이 체형적 진화로 실체가 되는 것은, 끈질기고 지혜로운 결단_행동에 달려 있다.

성장하는 시공우주 궤도들을 인격이 결국 반드시 달성해야 할지라도, 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 속의 재난과 물질 실존의 불이익이, 네가 태어난 행성에서 이 수준들을 통달하지 못하게 한다면, 네 의향과 욕구가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집행 유예를 연장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너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맨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언제든지 의구심이 생기면, 우주 통치 체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개인 이익에 맞게 판결하며;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런 혼을 과도기 존재로 올려주는 한편, 떠오르는 모론시아 의지와 영적 목적을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신성한 응보는 확실히 성취되며, 신성한 자비를 연장해서 베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오르본톤 정부와 **네바돈** 정부는, 필사자를 다시 인격화하는 우주 계획의 세부 작업이 절대로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참을성, 아량, 이해심, 및 자비로운 동정심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어느 진화 세계에서 오더라도,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는 영원한 기쁨을, 분투하는 한 필사자로부터 뺏는 위험을 자초하기보다, 우리는 차라리 한 체계가 반역하는 위험성을 떠맡고자 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 기회를 거부해도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아를_의식하는 최종 선택을 내리는, 단 한 번의 참된 기회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을 가진 우주 **재판관**들은, 영원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어떤 존재에게서도 인격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며;참된 의지와 진정한 목적을 드러낼, 완전하고 충분한 기회를 사람의 혼에게 반드시 줘야 하고, 또한 줄

personality, through its own choosing, possesses the power of transferring its seat of identity from the passing material-intellect system to the higher morontia-soul system which, in associ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is created as a new vehicle for personality manifestation.

112:5.5 (1233.1) And it is this very power of choice, the universe insignia of freewill creaturehood, that constitutes man's greatest opportunity and his supreme cosmic responsibility. Upon the integrity of the human volition depends the eternal destiny of the future finaliter; upon the sincerity of the mortal free will the divine Adjuster depends for eternal personality; upon the faithfulness of mortal choice the Universal Father depends for the realization of a new ascending son; upon the steadfastness and wisdom of decision-actions the Supreme Being depends for the actuality of experiential evolution.

112:5.6 (1233.2) Though the cosmic circles of personality growth must eventually be attained, if,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the accidents of time and the handicaps of material existence prevent your mastering these levels on your native planet, if your intentions and desires are of survival value, there are issued the decrees of probation extension. You will be afforded additional time in which to prove yourself.

112:5.7 (1233.3) If ever there is doubt as to the advisability of advancing a human identity to the mansion worlds, the universe governments invariably rule i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at individual; they unhesitatingly advance such a soul to the status of a transitional being, while they continue their observations of the emerging morontia intent and spiritual purpose. Thus divine justice is certain of achievement, and divine mercy is accorded further opportunity for extending its ministry.

112:5.8 (1233.4) The governments of Orvonton and Nebadon do not claim absolute perfection for the detail working of the universal plan of mortal repersonalization, but they do claim to, and actually do, manifest patience, tolerance, understanding, and merciful sympathy. We had rather assume the risk of a system rebellion than to court the hazard of depriving one struggling mortal from any evolutionary world of the eternal joy of pursuing the ascending career.

112:5.9 (1233.5) This does not mean that human beings are to enjoy a second opportunity in the face of the rejection of a first, not at all. But it does signify that all will creatures are to experience one true opportunity to make one undoubted, self-conscious, and final choice. The sovereign Judges of the universes will not deprive any being of personality status who has not finally and fully made the eternal choice; the soul of man must and will be given full and ample opportunity to

것이다.

좀 더 영적으로, 그리고 시공우주에서 더 진보된 필사자가 죽으면, 그는 즉시 맨션 세계로 나아가며; 대체로, 이 규정은 개인 스랍 수호자가 배정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외의 필사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붙잡혀 있을지 모르며, 그 후에 맨션 세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끝날 때 무더기로 다시 인격화될, 잠자는 생존자 반열에 배정될지도 모른다.

죽음에 처한 *너*, 즉 떠나는 **조울사**와는 다른, 생존하는 *너*에게 다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내 노력을 해방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물리적 영역과 모론시아 영역의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유란시아**에 대한 천상{天上}의 통치 당국이, 진리 계시자로서의 내 위원회에 부과한 제한 때문에 생긴다. 보여줄 만한 흥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직속 행성 감독관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살아남는, 실제적인 어떤 것, 인간 진화에 속하는 어떤 것, **신비 관찰자**에게 더해지는 어떤 것이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실체는 혼이며, 그 혼은 너의 육체적인 몸과 물질 정신, 이들이 죽고 난 후에 살아남는다. 이 실체는 신성한 *너*, 즉 **조울사**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너의 결합된 생명과 노력이 공동으로 낳은 자식이다. 인간과 신성한 어버이로부터 나온 이 자식은, 이 세상에서 기원된 것 가운데 살아남는 요소를 이루며; 그것은 모론시아 자아, 즉 불멸의 혼이다.

존속하는 의미와 생존하는 가치를 갖는 이 자식은, 죽을 때부터 다시 인격화될 때까지 전혀 의식이 없고, 기다리는 전체의 이 기간에, 스랍 운명 수호자의 보호를 받는다. 죽은 후에,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에서 모론시아의 새로운 의식을 획득할 때까지, 너는 의식 있는 존재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죽는 순간에, 그 인간의 인격과 관련된 기능상 정체성은, 생명의 움직임이 중지됨으로 중단된다. 인간의 인격은, 그 구성 요소들을 뛰어넘지만, 기능상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그 요소들에 의존한다. 생명의 중지는, 정신을 부여받는 물리적 뇌 원형{原型}을 파괴하며, 정신의 붕괴는 필사자 의식을 종결시킨다. 바로 그 인간 인격이, 살아있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시 작용하도록 허용하게 될 시공우주 상황이 마련되기까지, 그 피조물의 의식은 그 뒤에 다시 나타나날 수 없다.

reveal its true intent and real purpose.

112:5.10 (1233.6) When the more spiritually and cosmically advanced mortals die, they proceed immediately to the mansion worlds; in general, this provision operates with those who have had assigned to them personal seraphic guardians. Other mortals may be detained until such time as the adjudication of their affairs has been completed, after which they may proceed to the mansion worlds, or they may be assigned to the ranks of the sleeping survivors who will be repersonalized en masse at the end of the current planetary dispensation.

112:5.11 (1233.7) There are two difficulties that hamper my efforts to explain just what happens to *you* in death, the surviving *you* which is distinct from the departing Adjuster. One of these consists in the impossibility of conveying to your level of comprehension an adequate description of a transaction on the borderland of the physical and morontia realms. The other is brought about by the restrictions placed upon my commission as a revelator of truth by the celestial governing authorities of Urantia. There are many interesting details which might be presented, but I withhold them upon the advice of your immediate planetary supervisors. But within the limits of my permission I can say this much:

112:5.12 (1234.1) There is something real, something of human evolution, something additional to the Mystery Monitor, which survives death. This newly appearing entity is the soul, and it survives the death of both your physical body and your material mind. This entity is the conjoint child of the combined life and efforts of the human you in liaison with the divine you, the Adjuster. This child of human and divine parentage constitutes the surviving element of terrestrial origin; it is the morontia self, the immortal soul.

112:5.13 (1234.2) This child of persisting meaning and surviving value is wholly unconscious during the period from death to repersonalization and is in the keeping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 throughout this season of waiting. You will not function as a conscious being, following death, until you attain the new consciousness of morontia on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112:5.14 (1234.3) At death the functional identity associated with the human personality is disrupted through the cessation of vital motion. Human personality, while transcending its constituent parts, is dependent on them for functional identity. The stoppage of life destroys the physical brain patterns for mind endowment, and the disruption of mind terminates mortal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of that creature cannot subsequently reappear until a cosmic situation has been arranged which will permit the same human personality again to function in relationship with

생존하는 필사자들이 기원된 세계에서 맨션 세계로 운반되는 동안에는, 그들이 셋째 기간에 인격의 재조립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부활할 때 상승하든지 상관없이, 인격의 본질에 대한 기록은, 천사장들의 특수 활동 세계들에서 그들 덕분에 정확하게 보존된다. 이 존재들은 (수호하는 스라빔이 혼의 보관자인 것처럼) 인격 보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인격 요소는, 필사자의 생존을 관리하는 믿음만한 이 보관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사실이다. 죽음과 생존 사이에 개재돼 있는 시간 동안에 필사자의 인격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시 인격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영접{迎接} 행성들에 있는 부활실{復活室}에서 일어난다. 바로 생명을 조합하는 이 방들에서, 감독하는 관원들이 --모론시아적, 정신적, 및 영적-- 우주 에너지의 관계를 마련해 주며, 이것이 잠자는 생존자들을 의식을 되찾도록 만든다. 한때 물질이었던 인격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새로 생존하는 자가 그 안에서 비영적{非靈的} 실체와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시공우주 정신의 모론시아 변형이 그 안에서 순회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형태, 즉 모론시아 에너지 원형의 조립.

2. 기다리는 모론시아 피조물에게 **조율사**가 돌아옴. **조율사**는, 상승하는 너의 정체성의 영원한 수호자이며; 너의 **관찰자**는, 너의 인격이 깨어날 때를 위해 창조된 모론시아 형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차지할 것을 절대로 보장한다. 그리고 **조율사**는, 너의 생존하는 자아에게 **낙원** 안내 역할을 한 번 더 수행하기 위해서, 너의 인격 재조립 시에 출현할 것이다.

3. 다시 인격화되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조립됐을 때, 잠자는 불멸의 혼의 잠재성을 보관한 스랍 수호자는, 수많은 시공우주 인격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정신_몸 형태 위에, 그리고 그 속에, 이 모론시아 실재를 증여하며, 한편 **지존자**의 이 진화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조율사**와 영원히 연합하도록 맡긴다. 이것이 다시 인격화하는 과정, 즉 기억, 통찰력, 및 의식{意識}--곧 정체성--의 재조립을 완성한다.

다시 인격화한다는 사실은, 깨어나는 인간 자아가 새롭게 분리된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화 된 모론시아 국면을 붙잡는 것이다. 인격이라는 현상은, 우주 환경에 대해 자아가 반응하는 정체성이 영속하는 데 의존하며; 이것은 오직 정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자아성은, 자아의 구성 성분인 모든 요소가 계속 변화함에도 불

living energy.

112:5.15 (1234.4) During the transit of surviving mortals from the world of origin to the mansion worlds, whether they experience personality reassembly on the third period or ascend at the time of a group resurrection, the record of personality constitution is faithfully preserved by the archangels on their worlds of special activities. These beings are not the custodians of personality (as the guardian seraphim are of the soul), but it is nonetheless true that every identifiable factor of personality is effectually safeguarded in the custody of these dependable trustees of mortal survival. As to the exact whereabouts of mortal personality during the time intervening between death and survival, we do not know.

112:5.16 (1234.5) The situation which makes repersonalization possible is brought about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ontia receiving planets of a local universe. Here in these life-assembly chambers the supervising authorities provide that relationship of universe energy — morontial, mindal, and spiritual — which makes possible the reconsciousizing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reassembly of the constituent parts of a onetime material personality involves:

112:5.17 (1234.6) 1. The fabrication of a suitable form, a morontia energy pattern, in which the new survivor can make contact with nonspiritual reality, and within which the morontia variant of the cosmic mind can be encircuited.

112:5.18 (1234.7) 2. The return of the Adjuster to the waiting morontia creature. The Adjuster is the eternal custodian of your ascending identity; your Monitor is the absolute assurance that you yourself and not another will occupy the morontia form created for your personality awakening. And the Adjuster will be present at your personality reassembly to take up once more the role of Paradise guide to your surviving self.

112:5.19 (1235.1) 3. When these prerequisites of repersonalization have been assembled, the seraphic custodian of the potentialities of the slumbering immortal soul, with the assistance of numerous cosmic personalities, bestows this morontia entity upon and in the awaiting morontia mind-body form while committing this evolutionary child of the Supreme to eternal association with the waiting Adjuster. And this completes the repersonalization, reassembly of memory, insight, and consciousness — identity.

112:5.20 (1235.2) The fact of repersonalization consists in the seizure of the encircuited morontia phase of the newly segregated cosmic mind by the awakening human self. The phenomenon of personality is dependent on the persistence of the identity of selfhood reaction to universe environment; and this can only be effected through

구하고 지속되며;그 변화는 육신의 삶에서 점진적이며;그 변화는 죽었다가 다시 인격화될 때 돌연히 일어난다. 모든 자아성(곧 인격)의 진정한 실체는, 그 구성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화 덕분에, 우주 상황에 민감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정체 상태는 필연적 죽음에 이르러서 끝난다. 인간의 생명은, 불변하는 안정된 인격이 통합하는 생명 요소들의 끝없는 변화다.

이처럼 네가 **예루셈**의 맨션 세계에서 깨어날 때, 너는 몹시 변화돼 있고, 영적 변형은 대단히 클 것이며, 그래서 너의 **사고 조율사**와 운명 수호천사가, 새 세계들에서 너의 새 생활을, 첫 세계에서 있었던 옛 생활과 아주 충분히 연결시켜 주는데, 만약 이들이 없다면, 너는 새 모론시아 의식을 너의 소생되는 예전 정체성에 대한 기억과 연결시키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인격있는 자아성이 계속되는데도, 필사자 생애 가운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희미하고 몽롱한 꿈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자의 관계가 대부분 명료해질 것이다.

사고 조율사는, 오직 네 우주 생애의 일부뿐이고 그 생애에 필수적인 기억과 체험들만, 너를 위해서 다시 불러오고 숙달시킬 것이다.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진화시키는 데 **조율사**가 동반자였다면, 이 가치_있는 체험들은 그 **조율사**의 영원한 의식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과거 인생과 그 기억 가운데 많은 것들은, 영적 의미도 없고 모론시아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물질인 뇌와 함께 사라질 것이며;너를 모론시아 수준으로 가도록 다리 냈던 물질 체험 대부분은, 우주에서 어떤 목적에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 한번의 발판으로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인격, 그리고 인격체들 간의 관계는, 결코 발판 역할이 아니며;인격체로서 가졌던 관계들에 대한 필사자의 기억은 시공우주 가치가 있고 영속할 것이다. 맨션 세계에 가면, 짧지만 흥미로웠던 **유란시아**의 생애 동안 한때 관계를 가졌던 동역자들을 네가 알아보고, 또 그들도 너를 알 것이며, 더욱이 너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너를 기억할 것이다.

6. 모론시아 자아

나비가 애벌레 단계로부터 생겨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참된 인격도 맨션 세계에서 생겨나는 데, 물질 육신 속에 한때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어 드러날 것이다. 지방우주에서 모론시아 생애는, 혼으로 실존하는 초기 모론시아 수준으로부터, 점진적인 영성{靈性}이 최종 모론시아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격 체제의 계속적인 향상과 상관이 있다.

the medium of mind. Selfhood persists in spite of a continuous change in all the factor components of self; in the physical life the change is gradual; at death and upon repersonalization the change is sudden. The true reality of all selfhood (personality) is able to function responsively to universe conditions by virtue of the unceasing changing of its constituent parts; stagnation terminates in inevitable death. Human life is an endless change of the factors of life unified by the stability of the unchanging personality.

^{112:5.21 (1235.3)} And when you thus awaken on the mansion worlds of Jerusem, you will be so change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will be so great that, were it not for your Thought Adjuster and the destiny guardian, who so fully connect up your new life in the new worlds with your old life in the first world, you would at first have difficulty in connecting the new morontia consciousness with the reviving memory of your previous identity. Notwithstanding the continuity of personal selfhood, much of the mortal life would at first seem to be a vague and hazy dream. But time will clarify many mortal associations.

^{112:5.22 (1235.4)} The Thought Adjuster will recall and rehearse for you only those memories and experiences which are a part of, and essential to, your universe career. If the Adjuster has been a partner in the evolution of aught in the human mind, then will these worth-while experiences survive in the eternal consciousness of the Adjuster. But much of your past life and its memories, having neither spiritual meaning nor morontia value, will perish with the material brain; much of material experience will pass away as onetime scaffolding which, having bridged you over to the morontia level, no longer serves a purpose in the universe. But persona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ies are never scaffolding; mortal memory of personality relationships has cosmic value and will persist.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know and be known, and more, you will remember, and be remembered by, your onetime associates in the short but intriguing life on Urantia.

6. THE MORONTIA SELF

^{112:6.1 (1235.5)} Just as a butterfly emerges from the caterpillar stage, so will the true personalities of human beings emerge on the mansion worlds, for the first time revealed apart from their onetime enshrouding in the material flesh. The morontia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has to do with the continued elevation of the personality mechanism from the beginning morontia level of soul existence up to the final morontia level of progressive spirituality.

지방우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모론시아 인격 형태에 관해 너희를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너희는 인격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모론시아 형태를 타고난 것이며, 이것은 결국 너희의 납득 수준을 넘어서는 의복이다. 그런 형태는 전적으로 실체적이지만, 너희가 지금 이해하는 물질적 질서의 에너지 양식(樣式)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출생지인 행성에서 너희의 물질 육체가 어떤 목적에 소용됐던 것처럼, 지방우주의 세계들에서도 동일한 목적에 소용된다.

어느 정도까지, 물질적 육체_형상의 모습은 인격 정체성의 성질에 민감하며; 육체적 몸은 제한된 정도 내에서 인격의 타고난 본성에서 무언가를 반영한다. 모론시아 형상은 훨씬 더 그렇다. 육체의 삶에서, 필사자는 내부적으로 추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모론시아 생활에서는, 그리고 그것의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인격 형상은 내적 인격자의 본질에 따라 정비례로 변화하게 된다. 영적 수준에서는, 외부 형상과 내부 본성이 완벽하게 같아지는 지점까지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더 높은 영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완전해진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오르본톤의 으뜸 영**에 속하는 시공우주_정신 재능의 **네바돈** 개량형을 부여받는다. 필사자의 지능은, 그 자체로서는, 사라졌는데, 즉 **창조적 영**의 분화되지 않은 정신 회로들에서 따로 떨어진, 한 집중한 우주 실체로서 존재하기를 멈췄다. 그러나 필사 정신에 있었던 의미와 가치는 소멸되지 않았다. 정신의 어떤 국면들은, 생존하는 혼 속에서 이어지며; 예전의 인간 정신 속에 있었던 어떤 체험적 가치는, **조율사**로 인해 유지되며; 상승하는 필사자를 최종 평가하는 데 관련된 수많은 존재는, 스라빔에서 **우주 검열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마도 이들을 지나서 **지존자**까지 그 범위가 연장되며, 이 존재들 안에 어떤 살아있는 기록과 함께, 인간 생명이 육체 속에 살았던 대로 그 인간 생활의 기록이 지방우주에 지속된다.

피조물의 자유의사는, 정신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물질 지능을 잃어버렸음에도 존속한다. 생존한 이후에 즉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상승하는 인격체는 인간 생애에서 물려받은 성품 원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론시아 모타의 새롭게 나타나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안내받는다. 그리고 맨소니아에서 가질 몸가짐에 관한 이 안내 지침은, 모론시아 삶의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는 인격체의 충분히_성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모론시아 의지가 출현하기 전에, 만족할 수 있게 역할을 한다.

지방우주 생애에는, 인간으로 실존할 때의 일곱 보조 정신_영에 필적할 만큼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시공우주 정신을 지방우주 지능의 창조 근원이--곧 **신성한 사역자**--변경하고

112:6.2 (1235.6) It is difficult to instruct you regarding your morontia personality forms for the local universe career. You will be endowed with morontia patterns of personality manifestability, and these are investments which, in the last analysis, are beyond your comprehension. Such forms, while entirely real, are not energy patterns of the material order which you now understand. They do, however, serve the same purpose on the local universe worlds as do your material bodies on the planets of human nativity.

112:6.3 (1236.1) To a certain extent, the appearance of the material body-form is responsive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ity identity; the physical body does, to a limited degree, reflect something of the inherent nature of the personality. Still more so does the morontia form. In the physical life, mortals may be outwardly beautiful though inwardly unlovely; in the morontia life, and increasingly on its higher levels, the personality form will vary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inner person. On the spiritual level, outward form and inner nature begin to approximate complete identification, which grows more and more perfect on higher and higher spirit levels.

112:6.4 (1236.2) In the morontia estate the ascending mortal is endowed with the Nebadon modification of the cosmic-mind endowment of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The mortal intellect, as such, has perished, has ceased to exist as a focalized universe entity apart from the undifferentiated mind circuits of the Creative Spirit. But the meanings and values of the mortal mind have not perished. Certain phases of mind are continued in the surviving soul; certain experiential values of the former human mind are held by the Adjuster; and there persist in the local universe the records of the human life as it was lived in the flesh, together with certain living registrations in the numerous beings who are concerned with the final evaluation of the ascending mortal, beings extending in range from seraphim to Universal Censors and probably on beyond to the Supreme.

112:6.5 (1236.3) Creature volition cannot exist without mind, but it does persist in spite of the loss of the material intellect. During the times immediately following survival, the ascending personality is in great measure guided by the character patterns inherited from the human life and by the newly appearing action of morontia mota. And these guides to mansonia conduct function acceptably in the early stages of the morontia life and prior to the emergence of morontia will as a full-fledged volitional expression of the ascending personality.

112:6.6 (1236.4) There are no influences in the local universe career comparable to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human existence. The morontia mind must evolve by direct contact with cosmic

해석한 대로, 모론시아 정신은 시공우주 정신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진화해야 한다.

필사자의 정신은, 죽기 전에는, **조율사** 현존에 관계없이 자아_의식적으로 독립돼 있으며; 보조 정신은 그 정신이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관련된 물질_에너지 원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론시아 혼은 조율 보조자이므로, 물질_정신 체제를 빼앗길 때에는 **조율사** 없이 자아_의식을 유지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진화하는 혼은, 예전에 관련됐던 보조 정신이 내린 결정에서 얻은 계속되는 성품을 소유하며, 이 성품은, 되돌아오는 **조율사**로 인해 원형들이 거기서 활기를 얻게 될 때 생생한 기억이 된다.

기억이 지속한다는 것은 원래 자아성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증거이며; 인격이가 연속되고 확장됨을 완벽하게 자아_의식하는 데 필요하다. **조율사** 없이 상승하는 그런 필사자는, 인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스랍 동역자들의 설명에 의존하며; 그 외에 **영과** 융합된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제한받지 않는다. 기억의 원형(原型)은 혼 속에 존속하지만, 이 원형은 계속되는 기억으로서 즉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위해, 예전의 **조율사** 현존을 요구한다. **조율사**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필사자가 이전(以前)의 실존에 속했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는 의식을, 다시 탐구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혼은, 자아성의 정체성이 전에 앉아있던 자리인 그 물질 지능의 질적 및 양적 행동과 동기를 충실히 반영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선택하면서, 필사 정신은 지혜의 기질의 지시 아래서, 통합된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보호 하에 모론시아_이전(以前)의 우주 생애를 시작한다. 그 후에, 모론시아_이전에 달성하는 일곱 궤도를 완성함에 따라서, 모론시아 정신의 재능을 보조 정신 위에 첨가함으로써, 지방우주에서 진보하는 영이전(靈以前) 생애, 즉 모론시아 생애가 시작된다.

피조물이 자신의 출생 행성을 떠날 때, 보조체의 사역을 뒤에 남겨놓고, 오직 모론시아 지능에 의존한다. 한 상승자가 지방우주를 떠날 때, 그는 실존으로서의 영적 실존 수준을 달성했는데, 모론시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영적 실재는, 그때 **오르본톤** 시공우주 정신이 직접 베푸는 사역에 맞춰진다.

7. 조율사 융합

사고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은 인격에게 영원한 실재들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그 전에는 잠

mind, as this cosmic mind has been modified and translated by the creative source of local universe intellect — the Divine Minister.

112:6.7 (1236.5) Mortal mind, prior to death, is self-consciously independent of the Adjuster presence; adjutant mind needs only the associated material-energy pattern to enable it to operate. But the morontia soul, being superadjutant, does not retain self-consciousness without the Adjuster when deprived of the material-mind mechanism. This evolving soul does, however, possess a continuing character derived from the decisions of its former associated adjutant mind, and this character becomes active memory when the patterns thereof are energized by the returning Adjuster.

112:6.8 (1236.6) The persistence of memory is proof of the retention of the identity of original selfhood; it is essential to complet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ity continuity and expansion. Those mortals who ascend without Adjusters are dependent on the instruction of seraphic associates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memory; otherwise the morontia souls of the Spirit-fused mortals are not limited. The pattern of memory persists in the soul, but this pattern requires the presence of the former Adjuster to become *immediately* self-realizable as continuing memory. Without the Adjuster, it requires considerable time for the mortal survivor to re-explore and relearn, to recapture, the memory consciousness of the meanings and values of a former existence.

112:6.9 (1237.1) The soul of survival value faithfully reflects both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actions and motivations of the material intellect, the former seat of the identity of selfhood. In the choosing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he mortal mind enters upon its premorontia universe career under the tutelage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unifi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pirit of wisdom. Subsequently, upon the completion of the seven circles of premorontia attainment, the superimposition of the endowment of morontia mind upon adjutant mind initiates the prespiritual or morontia career of local universe progression.

112:6.10 (1237.2) When a creature leaves his native planet, he leaves the adjutant ministry behind and becomes solely dependent on morontia intellect. When an ascender leaves the local universe, he has attained the spiritual level of existence, having passed beyond the morontia level. This newly appearing spirit entity then becomes attuned to the direct ministry of the cosmic mind of Orvonton.

7. ADJUSTER FUSION

112:7.1 (1237.3) Thought Adjuster fusion imparts eternal actualities to personality which were

재했을 뿐이다. 새로 부여받은 이 재능 가운데 언급해도 좋은 것은: 신성 자질이 정착됨, 과거_영원의 체험과 기억, 불멸성, 그리고 제한된 잠재 절대성의 한 국면이다.

내가 일시적 형태를 입고 땅에서 사는 과정이 끝났을 때, 너는 더 나은 세계의 기슭에서 깨날 것이며, 결국 영원한 품속에서 너의 신실한 **조울사**와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 즉 유한한 피조물이 진화하는 신비를 구성하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진실이다. 융합은 신성시되는 **어센딩톤** 구체의 비밀이며, **신격**의 영과 융합되는 체험을 했던 자들이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정체성이 **낙원 신격**의 영과 영원히 하나 되는 때에 결합되는 그 실제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납득하지 못한다.

조울사와 융합하는 일은 대개, 상승하는 자가 지역 체계에 거주하는 동안 이뤄진다. 융합은 출생한 행성에서 자연사(自然死)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일어날 수 있으며; 맨션 세계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는 체계 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성좌에 머무는 시간까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상승자가 지방우주 본부에 있을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울사와 융합하는 일이 이뤄지면, 그런 인격체의 영원한 생애에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 천상{天上}의 존재들은 오랜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검사를 받지만,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세계와 모른시아 세계들에서 비교적 짧고 집약된 시험을 거친다.

조울사와 융합하는 것은, 그 인간 본성이 영원한 경력을 위해서 최종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초우주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_됨을 공인(公認)하는 것이고, 공인이 이뤄질 때, 융합된 인격체가 결국 지방우주의 경계를 벗어나서, 언젠가 연방우주 본부까지 나아가게 하는 출국허가이며,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먼 훗날에, **하보나** 중앙우주와 **신격**을 만나는 모험을 떠나도록, 오랜 비행을 위해서 제2스라빔에 둘러싸인다.

자아성은, 진화 세계에서는 물질이며; 우주에서는 한 사물이고, 그런 상태로 물질 실존의 법칙에 종속된다. 자아성은 시간세계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 변천에 민감하다. 생존하려는 결정은 여기서 형성돼야 한다. 모른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새롭고 더 영구적인 우주 실체가 됐고, 자아의 계속되는 성장은 우주들의 정신 회로와 영 회로에 점점 더 맞춰짐에 따라 이뤄진다. 생존하려는 결정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자아가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 자아는 우주에서 확고한 가치가 됐고, 이 새로운 가치는 생존하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

previously only potential. Among these new endowments may be mentioned: fixation of divinity quality, past-eternity experience and memory, immortality, and a phase of qualified potential absoluteness.

112:7.2 (1237.4) When your earthly course in temporary form has been run, you are to awaken on the shores of a better world, and eventually you will be united with your faithful Adjuster in an eternal embrace. And this fusion constitutes the mystery of making God and man one, the mystery of finite creature evolution, but it is eternally true. Fusion is the secret of the sacred sphere of Ascendington, and no creature, save those who have experienced fusion with the spirit of Deity, can comprehend the true meaning of the actual values which are conjoined when the identity of a creature of time becomes eternally one with the spirit of Paradise Deity.

112:7.3 (1237.5) Fusion with the Adjuster is usually effected while the ascender is resident within his local system. It may occur on the planet of nativity as a transcendence of natural death; it may take place on any one of the mansion worlds or on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it may even be delayed until the time of the constellation sojourn; or, in special instances, it may not be consummated until the ascender is on the local universe capital.

112:7.4 (1237.6) When fusion with the Adjuster has been effected, there can be no future danger to the eternal career of such a personality. Celestial beings are tested throughout a long experience, but mortals pass through a relatively short and intensive testing on the evolutionary and morontia worlds.

112:7.5 (1237.7) Fusion with the Adjuster never occurs until the mandates of the superuniverse have pronounced that the human nature has made a final and irrevocable choice for the eternal career. This is the at-onement authorization, which, when issued, constitutes the clearance authority for the fused personality eventually to leave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to proceed sometime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from which point the pilgrim of time will, in the distant future, enseconaphim for the long flight to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and the Deity adventure.

112:7.6 (1238.1) On the evolutionary worlds, selfhood is material; it is a thing in the universe and as such is subject to the laws of material existence. It is a fact in time and is responsive to the vicissitudes thereof. *Survival decisions must here be formulated.* In the morontia state the self has become a new and more enduring universe reality, and its continuing growth is predicated on its increasing attunement to the mind and spirit circuits of the universes. *Survival decisions are now being confirmed.* When the self attains the

실에 입각하는데, 이 사실은 **사고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함으로써 입증됐다. 그리고 참된 우주 가치를 지닌 신분을 획득했으므로, 그 피조물은 가장 높은 우주 가치를--곧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해방된다.

그런 융합된 존재들의 우주 반응은 이중적인데:스라피마와 아주 다르지 않은, 분리된 모론시아 개체들이며, 또한 잠재적으로는 **낙원**의 완결성취자 계층과 비슷하다.

그러나 융합된 개인은 정말로 한 인격이고, 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우주에서 어떤 지성체든지 분석하려고 해도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우주 법정을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거치면서, 그 중에 어떤 것도, 사람 또는 **조율사**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마침내 너희는, 지방우주의 **아버지**이신 **네바돈 주권자** 앞으로 안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창조하는 아버지 신분으로, 이 시간 우주에서 너희의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의 손에서, 그 신임장을 수여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만유의 아버지**를 찾는 너희의 연방우주 생애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준다.

승리한 **조율사**가 인류에게 숭고하게 봉사함으로써 인격을 획득했는가, 아니면 용맹스런 인간이 **조율사**처럼 되고자 진정으로 노력함으로써 불멸성{不滅性}을 획득했는가? 둘 다 아니지만;그들은 **지존자**에게 속하는 상승하는 인격체들 중에서 한 독특한 계층의 회원으로서 진화{進化}를 함께 성취해 왔고, 그는 쓸모 있고, 충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이 언제나 발견될 것이며, 그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만한 후보자인데, **하보나**의 일곱 회로를 거치고, 한때 땅에서 기원된 혼이,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실제 인격을 경건하게 인식하면서 서 있게 될 때까지, 언제나 위로 향하는 숭고한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

이 엄청난 상승 내내, **사고 조율사**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미래에 완전히 영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신성한 보증이다. 그동안에 필사자에게 현존하는 자유의지가, **조율사**에게 신성하고 무한한 본성을 해방시키는 영원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이 두 정체성이 하나가 됐으며;시간 또는 영원속에서 어떤 사건도, 사람과 **조율사**를 분리하지 못할 것이며;그들은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융합됐다.

조율사와 융합하는 세계에서, **신비 관찰자**의 운명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운명과--곧 **낙원 완결성취 단계**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율사**뿐 아니라 필사자도, 상대방의 전적인 협동과 신실한 도움 없이는 독특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특이한 동업관계는, 이 우주 시대의 모든 시공우주 현

spiritual level, it has become a secure value in the universe, and this new value is predicated upon the fact that *survival decisions have been made*, which fact has been witnessed by eternal fus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And having achieved the status of a true universe value, the creature becomes liberated in potential for the seeking of the highest universe value — God.

112:7.7 (1238.2) Such fused beings are twofold in their universe reactions: They are discrete morontia individuals not altogether unlike seraphim, and they are also beings in potential on the order of the Paradise finaliters.

112:7.8 (1238.3) But the fused individual is really one personality, one being, whose unity defies all attempts at analysis by any intelligence of the universes. And so, having passed the tribunals of the local universe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none of which have been able to identify man or Adjuster, the one apart from the other, you shall finally be taken before the Sovereign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Father. And there, at the hand of the very being whose creative fatherhood in this universe of time has made possible the fact of your life, you will be granted those credentials which entitle you eventually to proceed upon your superuniverse career in quest of the Universal Father.

112:7.9 (1238.4) Has the triumphant Adjuster won personality by the magnificent service to humanity, or has the valiant human acquired immortality through sincere efforts to achieve Adjusterlikeness? It is neither; but they together have achieved the evolution of a member of one of the unique orders of the ascending personalities of the Supreme, one who will ever be found serviceable, faithful, and efficient, a candidate for further growth and development, ever ranging upward and never ceasing the supernal ascent until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have been traversed and the onetime soul of earthly origin stands in worshipful recognition of the actual personality of the Father on Paradise.

112:7.10 (1238.5) Throughout all this magnificent ascent the Thought Adjuster is the divine pledge of the future and full spiritual stabilization of the ascending mortal. Meanwhile the presence of the mortal free will affords the Adjuster an eternal channel for the liberation of the divine and infinite nature. Now have these two identities become one; no event of time or of eternity can ever separate man and Adjuster; they are inseparable, eternally fused.

112:7.11 (1238.6) On the Adjuster-fusion worlds the destiny of the Mystery Monitor is identical with that of the ascending mortal —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And neither Adjuster nor mortal can attain that unique goal without the full co-operation and faithful help of the other. This extraordinary

상 중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조울사와 융합할 때부터, 상승자의 신분은 진화하는 피조물의 신분이다. 인간 구성원이 맨 먼저 인격을 누렸으며, 따라서 인격체를 감지하는데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조울사**보다 우위에 있다. 이 융합된 존재의 **낙원** 본부는 **디비닝톤**이 아니라 **어센딩톤**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이 독특한 조합은, **완결성취 단체**에 이르기까지 내내,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분류된다.

조울사가 상승하는 필사자와 일단 융합하고 나면, 그 **조울사**의 번호는 연방우주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디비닝톤**의 기록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컨대, 그 **조울사**의 등록부는 **완결성취 단체**의 대리 우두머리인 **그랜한다**의 내부 법정에 있는 비밀 케도들로 옮겨진다.

조울사 융합과 동시에, **만유의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창조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완성하시며; 신성{神性}을 인간성에게 영원히 증여한다는 약속을 모두 이루고, 그 계획을 완료하시게 된다. 이처럼 사실이 된, **하나님**과의 숭고한 동반자적 관계에 내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현실화시키려는 인간의 시도가 이제 시작된다.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은 **낙원 완결성취 단체**이며; 이것은 또한 필사자 동무와 영원히 하나 됨으로 결합하게 된 모든 **사고 조울사**에게 해당되는 운명의 목표다. **낙원**의 완결성취자들은 현재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우리는 모두,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후 아득히 먼 장래에, 그리고 유한한 **하나님**이 이 **지존 신격**을 지금 감싸고 있는 신비에서 최종적으로 떠오를 때, 그들은 심지어 더욱 숭고한 다른 과제들을 갖게 되리라고 추측한다.

중앙우주, 연방우주들, 및 지방우주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하여, 너희는 어느 범위까지 가르침을 받았으며; 방대한 이 창조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러 인격체 가운데 어떤 이들의 특성과 기원에 관해 무언가 들었다. 또한 너희는, 광우주의 주변을 지나 멀리 바깥에, 첫째 외부 공간 층에서, 우주들의 방대한 성단{星團}들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됐다. 외부 공간에, 지금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이 지역들에서, **지존하신 분**이, 계시되지 않은 제3의 활동을 나타내게 돼있음이, 본 진술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한 암시돼 왔으며; 너희는 또한, **낙원** 단체의 완결성취자들이 **지존자**의 체험하는 자녀라고 알려주는 것을 들었다.

partnership is one of the most engrossing and amazing of all the cosmic phenomena of this universe age.

112:7.12 (1239.1) From the time of Adjuster fusion the status of the ascender is that of the evolutionary creature. The human member was the first to enjoy personality and, therefore, outranks the Adjuster in all matters concerned with the recognition of personality.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is fused being is Ascendington, not Divinington, and this unique combination of God and man ranks as an ascending mortal all the way up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12:7.13 (1239.2) When once an Adjuster fuses with an ascending mortal, the number of that Adjuster is stricken from the records of the superuniverse. What happens on the records of Divinington, I do not know, but I surmise that the registry of that Adjuster is removed to the secret circles of the inner courts of Grandfanda, the acting head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112:7.14 (1239.3) With Adjuster fusion the Universal Father has completed his promise of the gift of himself to his material creatures; he has fulfilled the promise, and consummated the plan, of the eternal bestowal of divinity upon humanity. Now begins the human attempt to realize and to actualiz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that are inherent in the supernal partnership with God which has thus factualized.

112:7.15 (1239.4) The present known destiny of surviving mortals is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this is also the goal of destiny for all Thought Adjusters who become joined in eternal union with their mortal companions. At present the Paradise finaliters are working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 many undertakings, but we all conjecture that they will have other and even more supernal tasks to perform in the distant future after the seven superuniverses have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when the finite God has finally emerged from the mystery which now surrounds this Supreme Deity.

112:7.16 (1239.5) You have been instructed to a certain extent abou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central universe,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you have been told something about the character and origin of some of the various personalities who now rule these far-flung creations. You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re are in process of organization vast galaxies of universes far out beyond the periphery of the grand universe,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It has also been intimated in the course of these narratives that the Supreme Being is to disclose his unrevealed tertiary function in these now uncharted regions of outer space; and you have also been told that the finaliters of the Paradise corps are the experiential children of the Supreme.

조율사와 융합된 필사자들은, 그들의 완결성 취자 동역자들과 함께, 첫째 외부 공간 층에 있는 우주들의 경영에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거대한 성단{星團}들이 누군가가 거주하는 우주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경영자들 가운데서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발견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신하는데, 그들의 본성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섞어서 생긴 시공우주 결과물이다.

얼마나 굉장한 모험인가!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가! **지존자**의 자녀들인, 인격화되고 인간화된 이 **조율사**들과, **조율사**처럼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된 이 필사자들,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본질이 가장 높게 알려진 형태화와, **만유의 아버지**를 납득하고 달성할 능력이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지적 생명, 이 둘의 신비스런 조합이자 영원한 연합이, 하나의 거대한 창조를 경영할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조합, 그런 융합된 존재들이, 첫 외부 공간 층의 이 미래 우주 전반에 걸쳐서 실존하게 될지 모르는, 모든 형태의 지적 생명의 뛰어난 통치자, 비길 데 없는 경영인, 및 이해심 많고 동정심 많은 지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필사자들은 땅에서, 동물에서 유래된 것이 사실이며; 너희의 틀은 정말로 티끌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 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원한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유산은 분명히 너희 것이며, 언젠가 너희는 자신의 참된 성품에 어울리게 우주들에서 두루 봉사할 것이다--너희는 체험하는 **지존자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이다.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112:7.17 (1239.6) We believe that the mortals of Adjuster fusion, together with their finaliter associates, are destined to function in some manne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e have not the slightest doubt that in due time these enormous galaxies will become inhabited universes. And we are equally convinced that among the administrators thereof will be found the Paradise finaliters whose natures are the cosmic consequence of the blending of creature and Creator.

112:7.18 (1239.7) What an adventure! What a romance! A gigantic creation to be administered by the children of the Supreme, these personalized and humanized Adjusters, these Adjusterized and eternalized mortals, these mysterious combinations and eternal associations of the highest known manifestation of the es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 lowest form of intelligent life capable of comprehending and attaining the Universal Father. We conceive that such amalgamated beings, such partnerships of Creator and creature, will become superb rulers, matchless administrators, and understanding and sympathetic directors of any and all forms of intelligent life which may come into existence throughout these future universe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12:7.19 (1240.1) True it is, you mortals are of earthly, animal origin; your frame is indeed dust. But if you actually will, if you really desire, surely the heritage of the ages is yours, and you shall someday serve throughout the universes in your true characters — children of the Supreme God of experience and divine sons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personalities.

112:7.20 (1240.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113편. 운명의 스랍 수호자

⇨ 112

유란시아 책

114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3편
운명의 스랍 수호자

섹션

소개

1. 수호천사
2. 운명 수호자
3.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4. 스랍의 활동 범위
5. 스랍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6. 사람이 죽은 후 수호천사
7. 상승자 생애와 스라빔

PAPER 113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uardian Angels
2. The Destiny Guardians
3. Relation to Other Spirit Influences
4. Seraphic Domains of Action
5. Seraphic Ministry to Mortals
6. Guardian Angels after Death
7. Seraphim and the Ascendant Career

소개

시간세계에서 섬기는 영들과 공간의 사자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했으니, 우리는 수호하는 천사들, 즉 개별 필사자를 보살피는 데 헌신하는 스라빔에 관한 고찰로 넘어가는데, 필사자를 향상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으로 진보하는 방대한 생존 요강 전체가 마련돼 왔다. **유란시아**에서 지난 시절에, 이 운명 수호자들은, 사람에게 인식된 유일한 천사 집단이었을 것이다. 행성 스라빔은, 생존될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보냄 받은 섬기는 영들임에 틀림없다. 옆에 따라다니는 이 스라빔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큰 사건에서 필사적 사람의 영적 협조자 역할을 해 왔다. 여러 계시에서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으며”; 하늘에서 온 많은 명령을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받았다.”

스라빔은, 전통적인 하늘 천사들이며;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너희를 위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하는 섬기는 영이다. 그들은 인간 지성이 발달한 초기 시절부터 **유란시아**에서 사역해 왔다.

INTRODUCTION

113:0.1 (1241.1) HAVING presented the narratives of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nd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we com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guardian angels, seraphim devoted to the ministry to individual mortals, for whose elevation and perfection all of the vast survival scheme of spiritual progression has been provided. In past ages on Urantia, these destiny guardians were about the only group of angels that had recognition. The planetary seraphim are indeed ministering spirits sent forth to do service for those who shall survive. These attending seraphim have functioned as the spiritual helpers of mortal man in all the great event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 many a revelation “the word was spoken by angels”; many of the mandates of heaven have been “received by the ministry of angels.”

113:0.2 (1241.2) Seraphim are the traditional angels of heaven; they are the ministering spirits who live so near you and do so much for you. They have ministered on Urantia since the earliest times of human intelligence.

1. 수호천사

1. THE GUARDIAN ANGELS

수호천사에 관한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며; 어떤 인간 집단들은 개인 천사를 실제로 소유한다. 이것을 알기에,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에 관하여: “이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너희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영 현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

원래는, 독립된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스라빔이 한정적으로 배정됐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증여된 후로는, 인간의 지성, 영성(靈性), 및 운명에 따라서 배정된다. 인류는 지적으로 다음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1. 정상 이하의 정신소유자 --정상적인 의지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자들; 평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 이 부류는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는 자들을 포함하며; **신격**을 지성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정상 이하의 존재들은, 하나의 체루빔 대대(大隊)와 더불어, 하나의 스라빔 단체, 즉 하나의 중대(中隊)를 그들에게 시종들도록 배정받는데, 이것은 또한 그 구체의 인생 투쟁에서, 응보와 자비가 그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2. 평범한, 정상적인 유형의 인간 정신. 스랍사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남녀 사람은, 인간적 진보와 영적 발전에 따라서 동아리들을 형성할 때, 그들의 상태에 따라 일곱 부류로 분류된다.

3. 정상 이상(以上)의 정신소유자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영적 성취에서 확실한 잠재력을 가진 자들; 자신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와 다소간 접촉을 누리는 남녀; 다양한 운명 예비 단체의 구성원들. 한 인간이 우연히 어떤 집단에 소속됐든지 상관없이, 그런 개인이 여러 운명 예비 단체 가운데 어디든지 소속되면, 바로 그때 거기서, 개인 스라빔이 배정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필사자는 수호하는 천사의 계속적인 섬김과 끊임없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인간이든지 **진짜** 최상의 결정을 내릴 때, 즉 **조율사**와 실제 약혼이 있을 때, 개인 수호자가 그 혼에게 즉시 배정된다.

소위 정상 존재들에 대한 사역에서, 스랍의 배정은, 인간이 달성한 지능성 궤도와 영성(靈性) 궤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너희는 일곱째 궤도에서 필사 의복(衣服)을 입은 정신 속에서 출발하여, 자아를 이해하고, 자아를 정복하고, 자아를 통달하는 과제에 임하면서 안쪽으로 여행하며, (자연사가 너의 인생을 종료시키고 너의 투쟁을 맨션 세계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주하는 **조율사**와 상대적 접촉 및 친교를 이루는, 첫 궤도, 즉 내부 궤도에 당도할 때까지, 한 궤도 한 궤도 전진한다.

113:1.1 (1241.3) The teaching about guardian angels is not a myth; certain groups of human beings do actually have personal angels. It was in recognition of this that Jesus, in speaking of the children of the heavenly kingdom, said: “Take heed that you despise not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say to you, their angels do always behold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my Father.”

113:1.2 (1241.4) Originally, the seraphim were definitely assigned to the separate Urantia races. But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they are assigned in accordance with human intelligence, spirituality, and destiny. Intellectually, mankind is divided into three classes:

113:1.3 (1241.5) 1. The subnormal minded — those who do not exercise normal will power; those who do not make average decisions. This class embraces those who cannot comprehend God; they lack capacity for the intelligent worship of Deity. The subnormal beings of Urantia have a corps of seraphim, one company, with one battalion of cherubim, assigned to minister to them and to witness that justice and mercy are extended to them in the life struggles of the sphere.

113:1.4 (1241.6) 2. The average, normal type of human mind. From the standpoint of seraphic ministry, most men and women are grouped in seven classes in accordance with their status in making the circles of human progress and spiritual development.

113:1.5 (1241.7) 3. The supernormal minded — those of great decision and undoubted potential of spiritual achievement; men and women who enjoy more or less contact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members of the various reserve corps of destiny. No matter in what circle a human happens to be, if such an individual becomes enrolled in any of the several reserve corps of destiny, right then and there, personal seraphim are assigned, and from that time until the earthly career is finished, that mortal will enjoy the continuous ministry and unceasing watchcare of a guardian angel. Also, when any human being makes *the* supreme decision, when there is a real betrothal with the Adjuster, a personal guardian is immediately assigned to that soul.

113:1.6 (1242.1) In the ministry to so-called normal beings, seraphic assignment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human attainment of the circles of intellectuality and spirituality. You start out in your mind of mortal investment in the seventh circle and journey inward in the task of self-understanding, self-conquest, and self-mastery; and circle by circle you advance until (if natural death does not terminate your career and transfer your struggles to the mansion worlds) you reach the first or inner circle of relative contact and

시초의 궤도, 즉 일곱째 궤도에 있는 인간은, 1,000명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배정된 일단{一團}의 보조 체루빔과 함께 한 명의 수호천사를 갖는다. 여섯째 궤도에서는, 일단의 체루빔과 함께 스랍 한 쌍이, 500명씩 무리지어 상승하는 이 필사자를 안내하도록 배정된다. 다섯째 궤도가 달성되면, 인간은 약 100명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한 무리의 체루빔과 함께 한 쌍의 수호 스라빔이 책임을 맡게 된다. 넷째 궤도를 달성하면, 필사 존재들은 열 명씩 무리지어 집합되고, 한 쌍의 스라빔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한 중대{中隊} 체루빔의 보조를 받는다.

한 필사 정신이 동물적 유산의 타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지능성과 획득된 영성이 셋째 궤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나의 (실제로는 두 명의) 개인 천사가, 상승하는 이 필사자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배정된다. 그리하여 이 인간 혼은, 영원히 현존하고 점점 더 효력을 발휘하는 내주하는 **사도 조율사**뿐 아니라, 셋째 궤도를 마치고 둘째 궤도를 지나서 첫 궤도에 도달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안에, 이 개인 운명 수호자들의 집중된 원조를 받는다.

2. 운명 수호자

스라빔은, 세 가지 성취: 즉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는 최고의 결정을 했거나, 셋째 궤도에 들어갔거나, 운명 예비 단체 가운데 하나에 소집됐거나, 이 셋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실현한 인간 혼과 연합하는 데 배정되기 전에는, 운명 수호자로 알려지지 않는다.

인종들의 진화에서, 필수적으로 정복할 궤도에 도달한, 맨 처음 존재에게 한 운명 수호자가 배정된다. **유란시아**에서 개인 수호자를 확보한 첫 필사자는 **란토웁**이었는데, 그는 오래 전에 홍인종의 현자{賢者}였다.

모든 천사 배정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스라빔 집단에서 이뤄지며, 이런 임명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쌍을 이루는 천사의 상태를 고려해서—곧 스랍의 체험, 숨씨, 및 지혜에 비춰서— 이뤄진다. 오직 오랫동안 봉사한 스라빔, 즉 더 많이 체험하고 시험을 받은 유형들만이 운명 수호자로 배정된다. 많은 수호자가, **조율사** 없이 융합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세계들에서, 가치 있는 많은 체험을 획득했다. **조율사**와 마찬가지로, 스라빔은 한 번의 인생 동안 이 존재들을 따라다니며,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배정을 기다리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는, 다른 세계들에서 이미 이런 실제 체험을 겪었다.

commun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113:1.7 (1242.2) Human beings in the initial or seventh circle have one guardian angel with one company of assisting cherubim assigned to the watchcare and custody of one thousand mortals. In the sixth circle, a seraphic pair with one company of cherubim is assigned to guide these ascending mortals in groups of five hundred. When the fifth circle is attained, human beings are grouped in companies of approximately one hundred, and a pair of guardian seraphim with a group of cherubim is placed in charge. Upon attainment of the fourth circle, mortal beings are assembled in groups of ten, and again charge is given to a pair of seraphim, assisted by one company of cherubim.

113:1.8 (1242.3) When a mortal mind breaks through the inertia of animal legacy and attains the third circle of human intellectuality and acquired spirituality, a personal angel (in reality two) will henceforth be wholly and exclusively devoted to this ascending mortal. And thus these human souls, in addition to the ever-present and increasingly efficient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receive the undivided assistance of thes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in all their efforts to finish the third circle, traverse the second, and attain the first.

2. THE DESTINY GUARDIANS

113:2.1 (1242.4) Seraphim are not known as guardians of destiny until such time as they are assigned to the association of a human soul who has realized one or more of three achievements: has made a supreme decision to become Godlike, has entered the third circle, or has been mustered into on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113:2.2 (1242.5) In the evolution of races a guardian of destiny is assigned to the very first being who attains the requisite circle of conquest. On Urantia the first mortal to secure a personal guardian was Rantowoc, a wise man of the red race of long ago.

113:2.3 (1242.6) All angelic assignments are made from a group of volunteering seraphim, and these appointments are always in accordance with human needs and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angelic pair — in the light of seraphic experience, skill, and wisdom. Only seraphim of long service, the more experienced and tested types, are assigned as destiny guards. Many guardians have gained much valuable experience on those worlds which are of the non-Adjuster fusion series. Like the Adjusters, the seraphim attend these beings for a single lifetime and then are liberated for new assignment. Many guardians on Urantia have had this previous practical experience on other worlds.

인간들이 생존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 또는 집단 수호자는, 같은 행성에서 비슷한 수용력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복무할 수 있다. 스라빔은 개별 세계에 대해 감상적 관심을 갖게 되며, 매우 가깝고 긴밀하게 관계했던 어떤 인종들과 여러 유형의 필사 피조물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는다.

천사들은 그 인간 동역자를 향한 지속적 애정을 발전시키며, 너희가 그 스라빔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도 그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갖게 될 것이다. 물질 육신을 벗어나고 영 형태가 주어지면, 너희는 여러 인격 속성에서 천사와 매우 흡사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가진 감정 대부분을 공유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체험한다. 그들이 납득하기 다소 어려운, 너희에게만 작용하는 감정은, **유란시아**에서 사는 보통 거주자의 정신생활에서 덕지덕지 쌓인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다. 천사들은, 더 높은 지적 능력, 그리고 심지어 너희의 종교적 신앙마저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배당하도록, 너희가 왜 끈질기게 허용하는지, 겁에 질리고 걱정하며 경솔하게 공황상태에 빠져서 그토록 철저히 풀이 죽어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모든 스라빔은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근무에 배정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행성 번호로 호칭된다. 그들은 우주 본부에 이름과 번호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접촉하여 소통하는 동안 사용된 인간 상대자의 운명 수호자는, **네바돈**의 182,314번째 스랍 군대의, 37무리, 6군단, 384사단, 4대대, 126중대, 17소대의 3_번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이 스라빔과 이 인간 상대자에게 부여된 현재 행성 번호는 3,641,852_번이다.

개인 수호임무 사역에서, 천사들을 운명 수호자로 배정할 때, 스라빔은 언제나 복무를 자원한다. 이번에 방문(訪問)한 도시에서는, 어떤 필사가 최근에 운명 예비 단체에 가입 허락을 받았으며, 그런 모든 인간에게는 수호하는 천사가 개인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100명 이상의 스라빔이 배정받으려고 했다. 행성 지휘자는 체험을 많이 한 개인들 중에서 열두 명을 선택했고, 이 인간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서 그를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들이 선택한 스라빔을 나중에 임명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춘 스라빔 한 쌍을 선택했으며; 스랍 쌍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근무 중일 것이다.

스랍의 과제는 약화되지 않겠지만, 천사 쌍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모든 돌보는 책임을 실행할 수 있다. 체루빔과 마찬가지로, 스라빔도 대개 쌍으로 근무하지만, 덜 진보된 동역자들과는 달리, 스라빔은 때때로 홀로 일하기도 한다. 특히, 인간과 갖는 모든 접촉에서, 그들은 개인으로서 작

113:2.4 (1243.1) When human beings fail to survive, their personal or group guardians may repeatedly serve in similar capacities on the same planet. The seraphim develop a sentimental regard for individual worlds and entertain a special affection for certain races and types of mortal creatures with whom they have been so closely and intimately associated.

113:2.5 (1243.2) The angels develop an abiding affection for their human associates; and you would, if you could only visualize the seraphim, develop a warm affection for them. Divested of material bodies, given spirit forms, you would be very near the angels in many attributes of personality. They share most of your emotions and experience some additional ones. The only emotion actuating you which is somewhat difficult for them to comprehend is the legacy of animal fear that bulks so large in the mental life of the average inhabitant of Urantia. The angels really find it hard to understand why you will so persistently allow your higher intellectual powers, even your religious faith, to be so dominated by fear, so thoroughly demoralized by the thoughtless panic of dread and anxiety.

113:2.6 (1243.3) All seraphim have individual names, but in the records of assignment to world service they are frequently designated by their planetary numbers.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registered by name and number. The destiny guardian of the human subject used in this contactual communication is number 3 of group 17, of company 126, of battalion 4, of unit 384, of legion 6, of host 37, of the 182,314th seraphic army of Nebadon. The current planetary assignment number of this seraphim on Urantia and to this human subject is 3,641,852.

113:2.7 (1243.4) In the ministry of personal guardianship, the assignment of angels as destiny guardians, seraphim always volunteer their services. In the city of this visitation a certain mortal was recently admitted to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and since all such humans are personally attended by guardian angels, more than one hundred qualified seraphim sought the assignment. The planetary director selected twelve of the more experienced individuals and subsequently appointed the seraphim whom they selected as best adapted to guide this human being through his life journey. That is, they selected a certain pair of equally qualified seraphim; one of this seraphic pair will always be on duty.

113:2.8 (1243.5) Seraphic tasks may be unremitting, but either of the angelic pair can discharge all ministering responsibilities. Like cherubim, seraphim usually serve in pairs, but unlike their less advanced associates, the seraphim sometimes work singly. In practically all their

용할 수 있다. 오직 우주의 더 높은 궤도들에서 소통하고 근무하기 위해서만 두 천사가 필요하다.

스랍 한 쌍이 수호 임무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인간의 여생 동안 봉사한다. 보완 존재는(곧 두 천사 중에서 하나는) 떠맡은 일을 기록하는 자가 된다. 이 보완 스라빔은 진화 세계들에서 필사자에 대해 기록하는 천사다. 체루빔 쌍이(곧 하나의 체롭과 하나의 사놈이) 기록을 유지하며, 이들은 항상 스랍 수호자들과 연합하지만, 언제나 스라빔 중에서 하나가 이 기록을 보증한다.

휴식하고 우주 궤도들의 생명 에너지로 재충전할 목적으로, 수호자를 그 보완자가 정기적으로 교대하며, 그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연합된 체루빔이 기록원 역할을 하는데, 그 보완 스라빔이 비슷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한다.

3.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운명 수호자가 그 필사 상대자를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의 정신과 혼에 내주하고, 둘러싸고, 부딪치는 수많은 비인격 영의 영향을 친히 조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격체이며, 비인격 영들과 인격이 전 실체들이, 그렇게 상당히 물질적이고 분리되게 인격있는 정신과 직접 접촉을 이루기는 지극히 어렵다. 수호하는 천사의 사역에서, 이 모든 영향은 다소 통합되고, 진화하는 인간 인격의 성장하는 도덕적 본성이 이를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스랍 수호자는, 물리 통제관들과 보조 정신_영들의 영역으로부터, **신성한 사역자의 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낙원의 제3 근원 및 중심의 편재하는 영** 현존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행자 및 영향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무한한 영**의 이 방대한 사역을 이처럼 통합하고 더 개인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그 스라빔이, **공동 행위자**의 이 통합된 영향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 현존과 상호 관련시키기 시작한다.

조율사는 아버지의 현존이며; **진리의 영은 아들**들의 현존이다. 이런 신성한 자질들은, 수호 스라빔의 사역으로 인해, 인간의 영적 체험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통합되고 조화된다. 섬기는 천사들은, 필사 피조물을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사

contacts with human beings they can function as individuals. Both angels are required only for communication and service on the higher circuits of the universes.

113:2.9 (1243.6) When a seraphic pair accept guardian assignment, they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life of that human being. The complement of being (one of the two angels) becomes the recorder of the undertaking. These complemental seraphim are the recording angels of the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records are kept by the pair of cherubim (a cherubim and a sanobim) who are always associated with the seraphic guardians, but these records are always sponsored by one of the seraphim.

113:2.10 (1244.1) For purposes of rest and recharging with the life energy of the universe circuits, the guardian is periodically relieved by her complement, and during her absence the associated cherubim functions as the recorder, as is also the case when the complemental seraphim is similarly absent.

3. RELATION TO OTHER SPIRIT INFLUENCES

113:3.1 (1244.2)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destiny guardian does for her mortal subject is to effect a personal co-ordination of the numerous impersonal spirit influences which indwell, surround, and impinge upon the mind and soul of the evolving material creature. Human beings are personalities, and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nonpersonal spirits and prepersonal entities to make direct contact with such highly material and discretely personal minds. In the ministry of the guarding angel all of these influences are more or less unified and made more nearly appreciable by the expanding moral nature of the evolving human personality.

113:3.2 (1244.3) More especially can and does this seraphic guardian correlate the manifold agencies an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ranging from the domain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adjutant mind-spirits up to the Holy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and to the Omnipresent Spirit presence of the Paradise Third Source and Center. Having thus unified and made more personal these vast ministr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seraphim then undertakes to correlate this integrated influence of the Conjoint Actor with the spirit presences of the Father and the Son.

113:3.3 (1244.4) The Adjuster is the presence of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the presence of the Sons. These divine endowments are unified and co-ordinated on the lower levels of human spiritual experience by the ministry of the guardian

량과 **아들**의 자비를 조합하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본 문서에는, 육체의 죽음과 모른시아 부활 사이의 기간에, 왜 스랍 수호자들이 결국 필사 생존자의 정신 원형, 기억 방식, 및 혼 실체들에 대한 개인 보호자가 되는지, 그 이유가 계시돼 있다. **무한한 영**의 봉사하는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우주의 한 수준에서 더 높은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는 이 국면에서, 인간 피조물을 위해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너희가 마지막 변환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즉, 너희가 시간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옮겨갈 때에도, 높은 최고스라빔이, 피조물 신분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인격자를 보전{保全}하는 보증인으로서, 너와 함께 옮겨간다.

영적 수준에서, 스라빔은 우주에서 달리 비인격적이거나 인격이전{人格以前}인 많은 사역을 인격있는 사역이 되게 하며;그들은 조정하는 자다. 지적 수준에서, 그들은 정신과 모른시아를 상호 관련시키는 자이며;그들은 해석하는 자다. 그리고 물리적 수준에서, 그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중도{中道} 피조물의 협조하는 사역을 통해서, 땅의 환경을 조종한다.

이것이 옆에 따라다니는 스라빔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지만;우주에서 인류의 수준보다 약간 높게 창조된, 그런 하급 천사 인격체가, 어떻게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이런 엄청난 사역은 **지존하신 분**의, 인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작용 때문에 촉진되는데, 이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신격**이다. 스라빔은, **지존하신 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존하는 전체 영역에 두루, 필사자의 계속되는 진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4. 스랍의 활동 범위

수호 스라빔은 정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필사 정신을 기원시킨 동일한 근원, 즉 **창조적 영**으로부터 생겨난다. 스라빔은 정신을 자극하는 존재이며;인간 정신 속에서 여러 궤도에 도달하는 결정을 증진시키려고 계속 애쓴다. 그들은, **조울사**가 안으로부터 혼을 통해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밖에서 안쪽으로,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및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한다. 스라빔은,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조울사**가 이용하는 미끼가 아니라, **무한한 영**의 보살핌을 몸소 베푸는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seraphim. The angelic servers are gifted in combining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mercy of the Son in their ministry to mortal creatures.

113:3.4 (1244.5) And herein is revealed the reason why the seraphic guardian eventually becomes the personal custodian of the mind patterns, memory formulas, and soul realities of the mortal survivor during that interval between physical death and morontia resurrection. None but the ministering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could thus function in behalf of the human creature during this phase of transition from one level of the universe to another and higher level. Even when you engage in your terminal transition slumber, when you pass from time to eternity, a high supernaphim likewise shares the transit with you as the custodian of creature identity and the surety of personal integrity.

113:3.5 (1244.6) On the spiritual level, seraphim make personal many otherwise impersonal and prepersonal ministries of the universe; they are co-ordinators. On the intellectual level they are the correlators of mind and morontia; they are interpreters. And on the physical level they manipulate terrestrial environment through their liaison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rough the co-operative ministry of the midway creatures.

113:3.6 (1244.7) This is a recital of the manifold and intricate function of an attending seraphim; but how does such a subordinate angelic personality, created but a little above the universe level of humanity, do such difficult and complex things? We do not really know, but we conjecture that this phenomenal ministry is in some undisclosed manner facilitated by the unrecognized and unrevealed working of the Supreme Being, the actualizing Deity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roughout the entire realm of progressive survival in and through the Supreme Being, seraphim are an essential part of continuing mortal progression.

4. SERAPHIC DOMAINS OF ACTION

113:4.1 (1245.1) The guardian seraphim are not mind, though they do spring from the same source that also gives origin to mortal mind, the Creative Spirit. Seraphim are mind stimulators; they continually seek to promote circle-making decisions in human mind. They do this, not as does the Adjuster, operating from within and through the soul, but rather from the outside inward, working through the social, ethical, and moral environment of human beings. Seraphim are not the divine Adjuster lur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y do function as the personal agency of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필사적 사람은, **조울사**의 인도를 따르면서, 또한 스랍의 안내를 쾌히 받아들인다. **조울사**는 사람의 영원한 본성의 본질이며, 스랍은 사람의 진화하는 본성을--곧 이 세상에서는 필사 정신을, 저 세상에서는 모론시아 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희는 스랍 교관{敎官}들을 인식하고 알아보겠지만, 첫 인생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대개 알아보지 못한다.

스랍은, 인간 인격의 발걸음을 새롭고 진취적인 체험의 길로 안내함으로써, 사람의 선생으로서 활동한다. 스랍의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한 인생 달성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안내를 따르는 동안에,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라는 거친 언덕에 반드시 부딪치게 되며, 너희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 언덕을 지나갈 것이다.

경배하려는 충동은, 주로 높은 정신 보조체들의 영 충동에서 기원되는데, **조울사**의 안내로 강화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들이 자주 체험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은, 스랍의 영향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보호하는 스랍은 인간 상승자의 시공우주 통찰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필사자 환경을 끊임없이 조종하는데, 그 목표는, 내주하는 **조울사**의 현존을 그런 생존 후보자가 더욱 깨닫고, 그리하여 신성한 현존이 이를 영적 사명에 더욱 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내주하는 **조울사**와 주변에 있는 스랍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듯하지만, 그들은 항상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정교하게 화합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호자들은 **조울사**들의 활동이 가장 적을 때 가장 활동적이지만, 그들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서로 관련돼 있다. 그런 훌륭한 협동은 전혀 우연하거나 우발적이지 않다.

수호하는 스랍이라는 보살피는 인격체, 내주하는 **조울사**라는 **하나님** 현존, **거룩한 영**의 회로화된 실행, 그리고 **진리의 영**의 **아들** 의식(意識)은 모두 신성하게 서로 관련되어, 필사 인격체 안에서 그 인격체에게 베푸는 영적 사역의 의미심장한 통일을 이룬다. 다른 근원들 및 다른 수준들로부터 쏟아져오더라도, 천상{天上}의 이 영향력은 모두, **지존하신 분**의 감싸고 진화하는 현존 속에 통합돼 있다.

5. 스랍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천사들은 인간 정신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필사자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으며; 또한 내주하는 **조울사**와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 수호자는, 너의 인격의 존엄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

113:4.2 (1245.2) Mortal man, subject to Adjuster leading, is also amenable to seraphic guidance. The Adjuster is the essence of man's eternal nature; the seraphim is the teacher of man's evolving nature — in this life the mortal mind, in the next the morontia soul.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be conscious and aware of seraphic instructors, but in the first life men are usually unaware of them.

113:4.3 (1245.3) Seraphim function as teachers of men by guiding the footsteps of the human personality into paths of new and progressive experiences. To accept the guidance of a seraphim rarely means attaining a life of ease. In following this leading you are sure to encounter, and if you have the courage, to traverse, the rugged hills of moral choosing and spiritual progress.

113:4.4 (1245.4) The impulse of worship largely originates in the spirit promptings of the higher mind adjutants, reinforced by the leadings of the Adjuster. But the urge to pray so often experienced by God-conscious mortals very often arises as the result of seraphic influence. The guarding seraphim is constantly manipulating the mortal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augmenting the cosmic insight of the human ascender to the end that such a survival candidate may acquire enhanced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thus be enabled to yield increased co-operation with the spiritual mission of the divine presence.

113:4.5 (1245.5) While there is apparently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indwelling Adjusters and the encompassing seraphim, they always seem to work in perfect harmony and exquisite accord. The guardians are most active at those times when the Adjusters are least active, but their ministry is in some manner strangely correlated. Such superb co-operation could hardly be either accidental or incidental.

113:4.6 (1245.6) The ministering personality of the guardian seraphim, the God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encircuted act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 Son-consciousness of the Spirit of Truth are all divinely correlated into a meaningful unity of spiritual ministry in and to a mortal personality. Though hailing from different sources and different levels, these celestial influences are all integrated in the enveloping and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5. SERAPHIC MINISTRY TO MORTALS

113:5.1 (1245.7) Angels do not invade the sanctity of the human mind; they do not manipulate the will of mortals; neither do they directly contact with the indwelling Adjusters. The guardian of destiny

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에게 영향을 미치며;이 천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실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천사는 물론 다른 어떤 계층의 우주 인격체도, 인간의 선택하는 특권을 축소시키거나 빼앗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다.

천사들은 너희와 너무 가까이 있고 아주 다정하게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고집스럽게 편협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스라빔은 물질적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며;육체가 없으며;날개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정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정과 비교될 수 있는 영적 본성의 느낌과 정서를 체험한다.

스라빔은, 너희가 직접 호소하는 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너희를 위해 행동하며;자신보다 높은 존재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서 너희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또는 변화무쌍한 기분과는 무관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너희가 그들의 과제를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천사들이 너희의 호소 또는 기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필사적 사람은 천사들의 지성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배자 또는 지휘자가 아니며;수호자에 불과하다. 스라빔은 너희를 *보호하며*;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 않으며;너희는 반드시 자신의 행로를 계획해야 하지만, 이 천사들은 그때 너희가 선택한 행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그들은 (대개) 인간 생애의 일상적 사건에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업적을 세우라고 상관들로부터 지시받았을 때, 이 수호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을 발견할 것을, 너희는 확신하고 안심해도 좋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아니면, 그것도 대개 상관들의 직접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인간 드라마의 장면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따라다닐 존재이며, 그래서 미래 업무와 인격 관계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있다.

스라빔은 어떤 환경에서 인간에게 물질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런 수용력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중도 피조물과 물리 통제관들의 협조를 얻어, 인간을 위해 광범한 범위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과 실제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은 대단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 영역의 환경은 스랍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되지만, 인간의 진화라는 사슬 속에 있는 극히 중대한 연결고리에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스랍 수호자들이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했다.

influences you in every possible manner consistent with the dignity of your personality; under no circumstances do these angels interfere with the free action of the human will. Neither angels nor any other order of universe personality have power or authority to curtail or abridge the prerogatives of human choosing.

113:5.2 (1246.1) Angels are so near you and care so feelingly for you that they figuratively “weep because of your willful intolerance and stubbornness.” Seraphim do not shed physical tears; they do not have physical bodies; neither do they possess wings. But they do have spiritual emotions, and they do experience feelings and sentiments of a spiritual nature which are in certain ways comparable to human emotions.

113:5.3 (1246.2) The seraphim act in your behalf quite independent of your direct appeals; they are executing the mandates of their superiors, and thus they function regardless of your passing whims or changing moods. This does not imply that you may not make their tasks either easier or more difficult, but rather that angels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your appeals or with your prayers.

113:5.4 (1246.3) In the life of the flesh the intelligence of angels is not directly available to mortal men. They are not overlords or directors; they are simply guardians. The seraphim *guard* you; they do not seek directly to influence you; you must chart your own course, but these angels then act to make the best possible use of the course you have chosen. They do not (ordinarily) arbitrarily intervene in the routine affairs of human life. But when they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ir superiors to perform some unusual exploit, you may rest assured that these guardians will find some means of carrying out these mandates. They do not, therefore, intrude into the picture of human drama except in emergencies and then usually on the direct orders of their superiors. They are the beings who are going to follow you for many an age, and they are thus receiving an introduction to their future work and personality association.

113:5.5 (1246.4) Seraphim are able to function as material ministers to human being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ut their action in this capacity is very rare. They are able,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to function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 behalf of human beings, even to make actual contact with mankind, but such occurrences are very unusual. In most instances the circumstances of the material realm proceed unaltered by seraphic action, although occasions have arisen, involving jeopardy to vital links in the chain of human evolution, in which seraphic guardians have acted, and properly, on their own initiative.

6. 사람이 죽은 후 수호천사

자연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 스라빔이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인간 동역자가 필사의 소멸을 겪을 때 운명 수호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네가 죽게 되면, 너에 관한 기록과 신원(身元)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필사 정신과 신성한 **조울사**의 사역으로 인해 공동으로 진화된-- 인간 혼의 모론시아 실재를, 너의 미래 실존과 관계되는 기타 모든 가치와 함께, 진짜 너, 즉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함께, 운명 수호자가 정확하게 보존하는데, 떠나가는 **조울사** 및 실제로 있던 인격이 대표하는, 영속하는 실존의 정체성은 제외된다.

인간 정신 속에서, 표시등, 즉 스라빔이 **조울사**의 현존과 연합하는 영 발광체가 사라지자마자, 항상 따라다니던 천사는, 소대, 중대, 대대, 사단, 군단, 및 군대의 지휘하는 천사에게 연달아 몸소 보고하며; 시간과 공간의 최종 모험을 위해 정식으로 등록 된 후에, 그런 천사는 이 우주 상승 후보자의 스랍 군대 명령에 따라서, **저녁 별**(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행성의 스라빔 우주머리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 조직 단위의 지휘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다. 즉시, 그런 운명 수호자는 첫 맨션 세계로 나아가고, 예전에 육체 속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던 자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거기서 기다린다.

인간 혼이 개인 천사를 배정받은 후 생존하지 못할 경우에, 따라다니던 스라빔은 지방우주 본부로 출두해야 하는데, 전에 보고했던 대로, 자신의 보완자의 기록 전부에 대해 거기서 증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의 상대자가 생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법정에서 출두하며; 그 다음에 그는, 상승하는 잠재력을 가진 다른 필사자에게, 또는 스랍 사역의 다른 어떤 분야에 다시 배정받으려고 그 세계들로 돌아간다.

그러나 천사들은, 개인 수호자와 집단 수호자 자격으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진화하는 피조물을 여러 방법으로 돌본다. 자기 상대자가 즉시 맨션 세계로 가지 않는 개인 수호자들은, 섭리시대 심판의 출석점호를 기다리면서 한가하게 거기 머물지 않으며; 우주에 두루, 수많은 돌보는 사명에 다시 배정된다.

수호 스라빔은, 필사적 사람의 잠자는 혼의 생존하는 가치를 보관하는 신탁자(信託者)이며, 마찬가지로 자리를 비운 **조울사**는, 그런 불멸하는 우주 존재의 정체성이다.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형태와 공동으로, 이 둘이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협력할 때, 필사 상승자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

6. GUARDIAN ANGELS AFTER DEATH

113:6.1 (1246.5) Having told you something of the ministry of seraphim during natural life, I will endeavor to inform you about the conduct of the guardians of destiny at the time of the mortal dissolution of their human associates. Upon your death, your records, identity specifications, and the morontia entity of the human soul — conjointly evolved by the ministry of mortal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 are faithfully conserved by the destiny guardian together with all other values related to your future existence, everything that constitutes you, the real you, except the identity of continuing existence represented by the departing Adjuster and the actuality of personality.

113:6.2 (1246.6) The instant the pilot light in the human mind disappears, the spirit luminosity which seraphim associate with the presence of the Adjuster, the attending angel reports in person to the commanding angels, successively, of the group, company, battalion, unit, legion, and host; and after being duly registered for the final adventure of time and space, such an angel receives certification by the planetary chief of seraphim for reporting to the Evening Star (or other lieutenant of Gabriel) in command of the seraphic army of this candidate for universe ascension. And upon being granted permission from the commander of this highest organizational unit, such a guardian of destiny proceeds to the first mansion world and there awaits the consciousness of her former ward in the flesh.

113:6.3 (1247.1) In case the human soul fails of survival after having received the assignment of a personal angel, the attending seraphim must proce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ere to witness to the complete records of her complement as previously reported. Next she goes before the tribunals of the archangels, to be absolved from blame in the matter of the survival failure of her subject; and then she goes back to the worlds, again to be assigned to another mortal of ascending potentiality or to some other division of seraphic ministry.

113:6.4 (1247.2) But angels minister to evolutionary creatures in many ways aside from the services of personal and group guardianship. Personal guardians whose subjects do not go immediately to the mansion worlds do not tarry there in idleness awaiting the dispensational roll calls of judgment; they are reassigned to numerous ministering missions throughout the universe.

113:6.5 (1247.3) The guardian seraphim is the custodial trustee of the survival values of mortal man's slumbering soul as the absent Adjuster is the identity of such an immortal universe being. When these two collaborate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in conjunction with the newly

소들이 재결합된다.

조울사는 너를 알아볼 것이며; 수호하는 스라빔이 너를 다시 인격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네가 땅에서 살던 시절의 충실한 **관찰자**에게 너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행성 시대가 끝날 때, 즉 낮은 필사자 성취 궤도에 있는 자들이 모일 때, 맨션 구체들의 부활실에서 그들을 재결합시키는 이는 바로 그들의 집단 수호자인데, 너희의 기록도, “그리고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이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섭리시대 출석점호에, 생존하지 못하는 모든 인격체를 대신해서, 개인 또는 집단 보호 천사들이 응답하라고, 응보의 기법이 요구한다.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조울사**는 돌아오지 않으며, 출석점호가 있을 때, 스라빔은 응답하지만, **조울사**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부활”인데, 실제로는 피조물 실존이 끝났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응보의 출석점호는 언제나 자비의 출석점호, 즉 잠자는 생존자들의 부활 바로 다음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하는 가치에 대한 지고하고 전지{全知}한 **재판관**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사항이다. 그런 판결상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집단 수호자들은, 어떤 행성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봉사하고, 결국 수많은 잠자는 생존자의 잠자는 혼을 보관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 부활 반응이 맨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그들은 주어진 한 체계의 여러 다른 세계에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

사타나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역이 있었을 때 타락했던, 모든 개인 및 집단 수호자들은, 다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했음에도, 그 반역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셈**에 억류돼 있을 것이다. **우주 검열관**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충한 이 수호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맡겼던 혼들의 모든 양상{樣相}을 임의로 가져갔으며, 이 모른시아 실체들을 보관하기 위해 자원한 제2스라빔에게 관리하라고 맡겼다.

7. 상승자 생애와 스라빔

맨션 세계의 변방에서 이렇게 처음 깨어나는 것; 땅에서 살던 시절에 너를 오랫동안 사랑했고 항상 함께했던 천사 동무를, 거기서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는 것; 또한 땅에서 너의 정신에 그토록

fabricated morontia form, there occurs the reassembly of the constituent factors of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ascender.

113:6.6 (1247.4) The Adjuster will identify you; the guardian seraphim will repersonalize you and then re-present you to the faithful Monitor of your earth days.

113:6.7 (1247.5) And even so, when a planetary age ends, when those in the lower circles of mortal achievement are forgathered, it is their group guardians who reassemble them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spheres, even as your record tells: “And he shall send his angels with a great voice and sha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one end of the realm to another.”

113:6.8 (1247.6) The technique of justice demands that personal or group guardians shall respond to the dispensational roll call in behalf of all nonsurviving personalities. The Adjusters of such nonsurvivors do not return, and when the rolls are called, the seraphim respond, but the Adjusters make no answer. This constitutes the “resurrection of the unjust,” in reality the formal recognition of the cessation of creature existence. This roll call of justice always immediately follows the roll call of mercy,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survivors. But these are matters which are of concern to none but the supreme and all-knowing Judges of survival values. Such problems of adjudication do not really concern us.

113:6.9 (1247.7) Group guardians may serve on a planet age after age and eventually become custodians of the slumbering souls of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leeping survivors. They can so serve on many different worlds in a given system since the resurrection response occurs on the mansion worlds.

113:6.10 (1247.8) All personal and group guardians in the system of Satania who went astray in the Lucifer rebellion, notwithstanding that many sincerely repented of their folly, are to be detained on Jerusalem until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rebellion. Already have the Universal Censors arbitrarily taken from these disobedient and unfaithful guardians all aspects of their soul trusts and lodged these morontia realities for safekeeping in the custody of volunteer seconaphim.

7. SERAPHIM AND THE ASCENDANT CAREER

113:7.1 (1248.1) It is indeed an epoch in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this first awakening on the shores of the mansion world; there, for the first time, actually to see your long-loved and ever-present angelic companions of earth days; there

오랫동안 내주했던 신성한 **관찰자**의 신분과 현존을 거기서 정말로 의식하게 되는 것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정말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런 체험은 영광스런 깨어남이요, 진정한 부활이다.

모론시아 구체에서, 옆에 따라다니는 (두 명의) 스라빔은, 너의 공개된 동무다. 이 천사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의 생애를 통해서 네가 진보하는 동안, 가능한 모든 면에서 모론시아 상태 및 영{靈} 상태의 획득을 위해 너를 도우면서 너와 사귄 뿐만 아니라, 맨션 세계들에서 유지되는, 진화 스라빔을 위한 분교{分校}에서 연구함으로써 승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인류는 단순한 유형의 천사 계층들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 따라서 모론시아 생애에서 너의 첫 임무는, 육신의 사슬에서 해방된 후에 인격 의식{意識}을 되찾게 됐을 때 기다리고 있는 즉석 업무에서, 스라빔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맨션 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필사자는, 영구적 스랍 동역자 또는 수호자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론시아 구체들을 올라감에 따라서, **사고 조율사**와 네가 영원히 결합했다는 선포를 증언하고 보증하는 것은 결국 스랍 수호자다. 계속해서 그들은 너의 인격 신분이 시간 세계로부터 온 육신의 자녀임을 확증한다. 그 다음에, 네가 성숙한 모론시아 상태에 도달하면, **예루셈**, 그리고 체계의 진보와 문화를 가르치는 관련된 세계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너와 함께 **에덴시아** 및 그것에 속한 70개의 진보된 사회화 구체로 갈 것이며, 이어서 너를 **멜기세덱**들에게로 안내하고,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보내는 멋진 생애 내내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네가 **멜기세덱**들의 지혜와 문화를 다 배운 후에, **살빙톤**으로 데려갈 것이며, 거기서 너는 온 **네바돈**의 **주권자**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스랍 안내자들은,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을 통해서, **우버사**의 영접하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너를 따라갈 것인데, 네가 긴 **하보나** 비행{飛行}을 위해 마침내 제2스라빔에 둘러싸일 때까지, 너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필사 생애 동안에 배속됐던 운명 수호자들이 운데 더러는, **하보나**를 통해서 상승하는 순례자의 행로를 따라간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필사 동역자에게 일시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그 후에 이 필사자가 중앙우주 궤도들을 지나가는 동안, 이 운명 수호자는 **스라빙톤** 궤도들을 성취한다. 그리고 필사 동역자가 새로운 영원성 체험으로 들어가도록 운송되기 위한 마지막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이 **낙원**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그런 스라빔은 나중에 완결성취자 단체에서 그리고 **스랍 완료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

also to become truly conscious of the identity and presence of the divine Monitor who so long indwelt your mind on earth. Such an experience constitutes a glorious awakening, a real resurrection.

113:7.2 (1248.2) On the morontia spheres the attending seraphim (there are two of them) are your open companions. These angels not only consort with you as you progress through the career of the transition worlds, in every way possible assisting you in the acquirement of morontia and spirit status, but they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 to advance by study in the extension schools for evolutionary seraphim maintained on the mansion worlds.

113:7.3 (1248.3) The human race was created just a little lower than the more simple types of the angelic orders. Therefore will your first assignment of the morontia life be as assistants to the seraphim in the immediate work awaiting at the time you attain personality consciousness subsequent to your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the flesh.

113:7.4 (1248.4) Before leaving the mansion worlds, all mortals will have permanent seraphic associates or guardians. And as you ascend the morontia spheres, eventually it is the seraphic guardians who witness and certify the decrees of your eternal union with the Thought Adjusters. Together they have established your personality identities as children of the flesh from the worlds of time. Then, with your attainment of the mature morontia estate, they accompany you through Jerusem and the associated worlds of system progress and culture. After that they go with you to Edentia and its seventy spheres of advanced socialization, and subsequently will they pilot you to the Melchizedeks and follow you through the superb career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nd when you have learned the wisdom and culture of the Melchizedeks, they will take you on to Salvington, where you will stand face to face with the Sovereign of all Nebadon. And still will these seraphic guides follow you through the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and on to the receiving worlds of Uversa, remaining with you until you finally enseconaphim for the long Havona flight.

113:7.5 (1248.5) Some of the destiny guardians of attachment during the mortal career follow the course of the ascending pilgrims through Havona. The others bid their long-time mortal associates a temporary farewell, and then, while these mortals traverse the circles of the central universe, these guardians of destiny achieve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they will be in waiting on the shores of Paradise when their mortal associates awaken from the last transit sleep of time into the new experiences of eternity. Such ascending

를 하게 된다.

사람과 천사는 영원히 봉사할 때 다시 결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랍의 배정이 그들과 함께 하는 곳은 어디든지, 스라빔이 진화 세계에서 그 전에 자신이 보호했던 자, 즉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필사자와 항상 교통한다. 인간이 기원된 영역들에서 가졌던 친밀한 관계와 애정 어린 소속감은 결코 잊히지 않고,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는다. 사람과 천사는, 시간세계의 생애에서 한 것처럼, 영원한 시대에 신성한 봉사에서 협동할 것이다.

스라빔이 **낙원 신격**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화로 기원되는 한 혼을 **낙원**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명 수호자 직책을 받는 것이, 가장 높게 상급 받는 스랍의 임무다.

오직 운명 수호자들만이, 1차, 즉 필사 **완결성취 단체**로 소집되고, 그런 쌍들은 정체성이 하나_되는 최상의 모험에 참여해 왔으며; 그 두 존재는, 완결성취자 단체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스라빙톤**에서 영적으로 이중{二重}_통합을 성취했다. 전체 우주 활동에서 그렇게 보완하던 그 두 천사 본성은, 이 체험에서 궁극적으로 두_영이_하나됨을 성취하는데, **낙원 아버지**의 비{非}_**조율사** 부분을 받고 그것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시간세계에서 너희가 사랑하던 스랍 동역자들 가운데 더러는, 영원 세계에서 너희의 완결성취자 동료가 되는데, 이들은 **지존자**의 자녀요, **낙원 아버지**의 완성된 아들이다.

[**유란시아**에 주둔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seraphim subsequently enter upon divergent services in the finaliter corps and in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113:7.6 (1248.6) Man and angel may or may not be reunited in eternal service, but wherever seraphic assignment may take them, the seraphim are always in communication with their former ward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The intimate associations and the affectionate attachments of the realms of human origin are never forgotten nor ever completely severed. In the eternal ages men and angels will co-operate in the divine service as they did in the career of time.

113:7.7 (1249.1) For seraphim, the surest way of achieving the Paradise Deities is by successfully guiding a soul of evolutionary origin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refore is the assignment of guardian of destiny the most highly prized seraphic duty.

113:7.8 (1249.2) Only destiny guardians are mustered into the primary or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such pairs have engaged in the supreme adventure of identity at-oneness; the two beings have achieved spiritual bi-unification on Seraphington prior to their reception into the finaliter corps. In this experience the two angelic natures, so complemental in all universe functions, achieve ultimate spirit two-in-oneness, repercussing in a new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and fusion with, a non-Adjuster fragment of the Paradise Father. And so do some of your loving seraphic associates in time also become your finaliter associates in eternity, children of the Supreme and perfected sons of the Paradise Father.

113:7.9 (1249.3)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114편. 행성의 스랍 정부

⇨ 113

유란시아 책

115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4편
행성의 스랍 정부

섹션

소개

1. 유란시아의 주권
2. 행성 감독관 위원회
3. 거주하는 총독
4. 관찰하는 지고자
5. 행성 정부
6.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스라빔
7. 운명 예비 단체

PAPER 114
SERAPHIC PLANETARY
GOVERNM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overeignty of Urantia
2. The Board of Planetary Supervisors
3.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4. The Most High Observer
5. The Planetary Government
6.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7.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소개

천상의 많은 세력과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나 주로 스라빔의 사역을 통해서, **지고자**{至高者}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한다.

오늘 정오에,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 수호자, 및 다른 자들의 출석인원은, 501,234,619쌍의 스라빔이었다. 내 지휘 아래 200 스랍 군대가 -- 곧 597,196,800쌍의 스라빔, 즉 1,194,393,600명의 개별 천사가-- 배정돼 있다. 아무튼, 등록된 개별 존재는 1,002,469,238명이며; 따라서 191,924,362명의 천사가, 운송, 연락원, 및 죽음과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 세계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 (**유란시아**에는 스라빔과 거의 동일한 숫자의 체루빔이 있으며, 그들도 비슷하게 조직돼 있다.)

스라빔과 그 동역자인 체루빔은, 한 행성, 특히 반역 때문에 고립된 세계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사항에 많이 관여한다. 천사는, 중도자의 훌륭한 협조를 받는데, 주재하는 총독과 그의 모든 동역자 및 부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초물질 사역자로서 **유란시아**에서 활동한다. 하나의 계층

INTRODUCTION

114:0.1 (1250.1)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through many celestial forces and agencies but chiefly through the ministry of seraphim.

114:0.2 (1250.2) At noon today the roll call of planetary angels, guardians, and others on Urantia was 501,234,619 pairs of seraphim. There were assigned to my command two hundred seraphic hosts — 597,196,800 pairs of seraphim, or 1,194,393,600 individual angels. The registry, however, shows 1,002,469,238 individuals; it follows therefore that 191,924,362 angels were absent from this world on transport, messenger, and death duty. (On Urantia there are about the same number of cherubim as seraphim, and they are similarly organized.)

114:0.3 (1250.3) Seraphim and their associated cherubim have much to do with the details of the superhuman government of a planet, especially of worlds which have been isolated by rebellion. The angels, ably assisted by the midwayers, function on Urantia as the actual supermaterial ministers

으로서 스라빔은, 개인 및 집단 수호자 역할 이외의 다른 많은 임무에 몰두한다.

유란시아는, 체계, 성좌, 및 우주의 통치자들로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그리고 심지어 **네바돈** 천체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정부와도 같지 않다. 너희를 감독하는 계획이 이렇게 독특한 것은 몇 가지 특이한 환경 때문이다:

1. **유란시아**의 생명 변경 상태.
2. **루시퍼** 반역의 긴급사태.
3. **아담**의 태만으로 인한 혼란.
4. **유란시아**가 **우주 주권자**의 증여 세계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점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임.
5. 24명의 행성 지도자의 특별한 기능.
6. 천사장들의 회로가 행성에 위치함.
7. 한때 육신화 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아주 최근에 대리 **행성 왕자**로 임명됨.

1. 유란시아의 주권

유란시아의 원래 주권은 **사타니아** 체계 주권자에게 맡겨졌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 **멜기세덱**들과 **생명 운반자**들의 연합 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이 집단은, 정식으로 임명된 **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활동했다.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을 당시 **캘리개스차 왕자**가 몰락한 후에,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육신 속의 증여를 완성 할 때까지, 지방우주 및 그 경영 부서들과 확실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때 **합동 항존자**들이 **미가엘**을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 선포했다. 그런 선포는 확실히, 원칙적으로 너희 세계의 상태를 영원히 해결했지만, 실제로는 **주권자 창조주 아들**이 행성을 친히 경영하려는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 가지 예외는, **유란시아** 정부를 비롯해 체계에서 격리된 다른 모든 행성의 정부에서 그를 대변할 권한을 가진, 24명의 옛 **유란시아인**으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 협의회가운데 한 명은 지금 주재(駐在)하는 총독으로서 **유란시아**에 항상 거주하고 있다.

who execute the mandates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nd all his associates and subordinates. Seraphim as a class are occupied with many assignments other than those of personal and group guardianship.

114:0.4 (1250.4) Urantia is not without proper and effective supervision from the system, constellation, and universe rulers. But the planetary government is unlike that of any other world in the Satania system, even in all Nebadon. This uniqueness in your plan of supervision is due to a number of unusual circumstances:

- 114:0.5 (1250.5) 1. The life modification status of Urantia.
- 114:0.6 (1250.6) 2. The exigencies of the Lucifer rebellion.
- 114:0.7 (1250.7) 3. The disruptions of the Adamic default.
- 114:0.8 (1250.8) 4. The irregularities growing out of the fact that Urantia was one of the bestowal worlds of the Universe Sovereign. Michael of Nebadon is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 114:0.9 (1250.9) 5. The special function of the twenty-four planetary directors.
- 114:0.10 (1250.10) 6. The location on the planet of an archangels' circuit.
- 114:0.11 (1250.11) 7. The more recent designation of the onetime incarnated Machiventa Melchizedek as vicegerent Planetary Prince.

1. THE SOVEREIGNTY OF URANTIA

114:1.1 (1250.12) The original sovereignty of Urantia was held in trust by the sovereign of the Satania system. It was first delegated by him to a joint commission of Melchizedeks and Life Carriers, and this group functioned on Urantia until the arrival of a regularly constituted Planetary Prince. Subsequent to the downfall of Prince Caligastia,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Urantia had no sure and settled relationship with the local universe and its administrative divisions until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in the flesh, when he was proclaimed, by the Union of Days, Planetary Prince of Urantia. Such a proclamation in surety and in principle forever settled the status of your world, but in practice the Sovereign Creator Son made no gesture of personal administration of the planet aside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Jerusem commission of twenty-four former Urantians with authority to represent him in the government of Urantia and all other quarantined planets in the system. One of this council is now always resident on Urantia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행성 왕자인 **미가엘**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권한이, 최근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됐지만, 지방우주의 이 **아들**은, 주재{駐在}하는 총독들의 잇따른 경령을 맡는 현재의 행성 체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리 **행성 왕자**가 자신의 직함에 맞는 책임을 맡으려고 도착하지 않는다면, 현재 섭리시대 동안에, **유란시아** 정부에서 어떤 현저한 변화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 더러는,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24조언자 가운데 한 명을 **유란시아**에 보내서 총독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을, **유란시아** 주권에 대한 대리 통치권을 가진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도착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루시퍼** 반역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마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가 대리 **행성 왕자**로서 행성을 책임질 것이다.

더러는, 현재 섭리시대가 끝날 때까지,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직무를 친히 지휘하려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더러는, **미가엘**이 아직 육신 속에 있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언젠가 **유란시아**에 돌아올 때까지, 대리 **왕자**가 그런 식으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도 포함해서, 어느 날 또는 어느 시각에든지 **멜기세덱**이 나타나리라고 고대하고 있다.

2. 행성 감독관 위원회

너희 세계에 **미가엘**이 증여했던 시절 이후로, **유란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한때 **유란시아인**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의 특별 집단에게 위탁돼 왔다.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건대, 그렇게 임명된 자는 모두, **사타니아** 체계에서 **지존자**의 확장하는 주권에 공헌한 사람이었다. 본래 그들은 모두 **유란시아**에서 활동했을 때 참된 지도자였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이 우수한 지도력은 맨션 세계의 체험으로 인해 더욱 확대됐고, **예루셈**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증대됐다. 위원들은 **라나휘지**의 내각{內閣}으로부터 그 24명에 지명됐고,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이 채정했으며, **예루셈**의 **배정된 파수꾼**이 승인했고,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임명했다. 임시로 임명받는 자들은, 이 특별 감독관 위원회의 영구 위원과 똑같이 활동한다.

114:1.2 (1251.1) Vicegerent authority to act for Michael as Planetary Prince has been recently vested in Machiventa Melchizedek, but this Son of the local universe has made not the slightest move toward modifying the present planetary regime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ons of the resident governors general.

114:1.3 (1251.2) There is little likelihood that any marked change will be made in the government of Urantia during the present dispensation unless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should arrive to assume his titular responsibilities. It appears to certain of our associates that at some time in the near future the plan of sending one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to Urantia to act as governor general will be superseded by the formal arrival of Machiventa Melchizedek with the vicegerent mandate of the sovereignty of Urantia. As acting Planetary Prince he would undoubtedly continue in charge of the planet until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probably on into the distant future of planetary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114:1.4 (1251.3) Some believe that Machiventa will not come to take personal direction of Urantian affairs until the end of the current dispensation. Others hold that the vicegerent Prince may not come, as such, until Michael sometime returns to Urantia as he promised when still in the flesh. Still others, including this narrator, look for Melchizedek's appearance any day or hour.

2. THE BOARD OF PLANETARY SUPERVISORS

114:2.1 (1251.4) Since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on your world the general management of Urantia has been intrusted to a special group on Jerusem of twenty-four onetime Urantians.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on this commission is unknown to us, but we have observed that those who have been thus commissioned have all been contributors to the enlarging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the system of Satania. By nature they were all real leaders when they functioned on Urantia, and (excepting Machiventa Melchizedek) these qualities of leadership have been further augmented by mansion world experience and supplemented by the training of Jerusem citizenship. Members are nominated to the twenty-four by the cabinet of Lanaforge, seconded by the Most Highs of Edentia, approved by the Assigned Sentinel of Jerusem, and appointed by Gabriel of Salvington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Michael. The temporary appointees function just as fully as do the permanent members of this commission of special supervisors.

이 행성 지휘자 위원회는, **미가엘**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이 세상에서 체험했다는 사실의 결과로 이 세계에서 생기는 활동을 감독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갖는다. 어떤 **찬란한 저녁별**의 연락 활동으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긴밀하고도 즉각적인 접촉이 그들에게 유지되며, 그 **찬란한 저녁별**은, **예수**께서 필사자로 증여하는 동안 내내 함께 했던 동일한 존재다.

너희에게 **“세레자”**로 알려진 **요한**이, 현재 **예루셈**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이 협의회의 의장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직권상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의 **배정된 파수꾼**인데, 그는 **살빙톤**에 있는 **부검열관** 및 **오르본톤**의 **최상 행정관**을 직접 개인적으로 대표한다.

전에 **유란시아인**이었던 바로 이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체계에 속한 반역으로 격리된 36개의 다른 세계에 대해 자문하는 감독관으로도 활동하며;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들의 전면통제 아래에 아직도 다소 남아 있는, 이 행성들의 직무와 긴밀하고 동정심 어린 접촉을 하면서,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를 따르는 매우 가치 있는 봉사를 수행한다. 24명의 이 조연자는, 격리된 각 행성에, 특히 **유란시아**에 개인적으로 자주 다녀간다.

격리된 다른 세계들은, 각각 한때 거기에 거주했던 자들로 구성된, 비슷하면서도 크기가 다양한 여러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만, 이 다른 위원회들은 24명의 **유란시아** 집단에 종속돼 있다. **유란시아**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타니아**에 있는 격리된 각 세계에서 인간이 진보하는 각 국면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두는 한편, 특히 **유란시아**의 필사자 인종들의 복지와 진보에 각별하게 관심 두고 있는데, 이는 **유란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의 직무도 즉각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 여기서도 그들의 권위는 필사자 생존과 관계되는 특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완벽하지 않다.

24명의 이 **유란시아** 조연자가, 우주 활동의 정규 계획표에서 벗어난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한 섭리시대가 끝나거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완전한 권위를 인수(引受)하거나, **루시퍼** 반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했던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 같은, 어떤 행성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그들의 현재 자격으로 계속 근무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유란시아**에 주재하는 총독은, **사타니아** 체계가 성좌 궤도로 환원되는 순간, **마키벤타**를 제외하고, 모두 **낙원**으로 상승하기 위해 거의 자유롭게 되리라는 견해를 갖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 역시 통용된다.

114:2.2 (1251.5) This board of planetary directors is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on this world which result from the fact that Michael here experienced his terminal bestowal. They are kept in close and immediate touch with Michael by the liaison activities of a certain Brilliant Evening Star, the identical being who attended upon Jesus throughout the mortal bestowal.

114:2.3 (1252.1) At the present time one John, known to you as “the Baptist,” is chairman of this council when it is in session on Jerusem. But the ex officio head of this council is the Assigned Sentinel of Satania, the direct and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ssociate Inspector on Salvington and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114:2.4 (1252.2) The members of this same commission of former Urantians also act as advisory supervisors of the thirty-six other rebellion-isolated worlds of the system; they perform a very valuable service in keeping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in close and sympathetic touch with the affairs of these planets, which still remain more or less under the overcontrol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Norlatiadek. These twenty-four counselors make frequent trips as individuals to each of the quarantined planets, especially to Urantia.

114:2.5 (1252.3) Each of the other isolated worlds is advised by similar and varying sized commissions of its onetime inhabitants, but these other commissions are subordinate to the Urantian group of twenty-four. While the members of the latter commission are thus actively interested in every phase of human progress on each quarantined world in Satania, they are especially and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the mortal races of Urantia, for they immediately and directly supervise the affairs of none of the planets except Urantia, and even here their authority is not complete excepting in certain domains concerned with mortal survival.

114:2.6 (1252.4) No one knows how long these twenty-four Urantia counselors will continue in their present status, detached from the regular program of universe activities. They will no doubt continue to serve in their present capacities until some change in planetary status ensues, such as the end of a dispensation, the assumption of full authority by Machiventa Melchizedek,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or the reappearance of Michael on the world of his final bestowal. The present resident governor general of Urantia seems inclined to the opinion that all but Machiventa may be released for Paradise ascension the moment the system of Satania is restored to the constellation circuits. But other opinions are also current.

3. 거주하는 총독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마다, 24명의 행정 조연자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너희 세계에 머물도록 지정해서 그들의 행정 대표자, 즉 거주하는 총독으로 활동하게 한다. 본 문서들이 준비되던 시기에 이 행정 관원이 바뀌었는데, 열아홉 번째를 뒤이어 스무 번째가 그렇게 근무하게 됐다. 현재의 행정 감독관의 이름이 너희에게 알려질 수 없는 이유는, 다만 필사적 사람이 비범한 동포와 초인적 선배들을 공경하려는, 그리고 심지어 신격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셈** 24조연자의 대표자 역할 외에는, 세상 직무의 관리에 실제적인 개인 권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 그는 초인간 경영을 조정하는 자로서 행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천상의 존재들의 훌륭한 우두머리요, 널리 알려진 지도자다. 모든 계층의 천사 무리는, 그를 자신의 협조하는 지휘자로 간주하며, 한편 결합된 중도자들은, 1_2_3 첫 번째가 24조연자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 떠난 후로는, 이어지는 총독들을 정말로 자신의 행정 아버지로 여긴다.

총독은, 행성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권위를 갖지 않더라도, 관계된 모든 인격체가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판정과 결정을 매일 하달한다. 그는 형식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자문가에 훨씬 가깝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성 왕자**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경영은 **물질 아들**의 경영과 훨씬 유사하다.

유란시아 정부는 **예루셈**의 여러 협의회에서 역할을 맡는데, 돌아오는 총독이, **행성 왕자**들로 구성된 **체계 주권자** 내각의 임시 회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조정안(調停案)에 따른 것이다. **마키벳** 타가 대리 **왕자**로 지정됐을 때, **사타니아**의 **행성 왕자** 협의회에서 그가 즉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는 이런 방향에서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지방우주의 높은 단위들과 매우 가까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셈**뿐 아니라 **살빙톤**을 대표하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직접 대행하는 24조연자를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셈** 시민이므로, 행성의 총독은 **체계 주권자**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보론다덱 아들**, 즉 **에덴시아** 관찰자가 성좌 당국을 직접 대표한다.

3.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3.1 (1252.5) Every on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the Jerusem corps of twenty-four planetary supervisors designate one of their number to sojourn on your world to act as their executive representative,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During the times of the preparation of these narratives this executive officer was changed, the nineteenth so to serve being succeeded by the twentieth. The name of the current planetary supervisor is withheld from you only because mortal man is so prone to venerate, even to deify, his extraordinary compatriots and superhuman superiors.

114:3.2 (1252.6)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has no actual personal authority in the management of world affairs excep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twenty-four Jerusem counselors. He acts as the co-ordinator of superhuman administration and is the respected head and universally recognized leader of the celestial beings functioning on Urantia. All orders of angelic hosts regard him as their co-ordinating director, while the United Midwayers, since the departure of 1-2-3 the first to become one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really look upon the successive governors general as their planetary fathers.

114:3.3 (1253.1) Although the governor general does not possess actual and personal authority on the planet, he hands down scores of rulings and decisions each day which are accepted as final by all personalities concerned. He is much more of a fatherly adviser than a technical ruler. In certain ways he functions as would a Planetary Prince, but his administration much more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Material Sons.

114:3.4 (1253.2) The Urantia government is represented in the councils of Jerusem in accordance with an arrangement whereby the returning governor general sits as a temporary member of the System Sovereign's cabinet of Planetary Princes. It was expected, when Machiventa was designated vicegerent Prince, that he would immediately assume his place in the council of the Planetary Princes of Satania, but thus far he has made no gesture in this direction.

114:3.5 (1253.3) The supermaterial government of Urantia does not maintain a very close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higher units of the local universe. In a way,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represents Salvington as well as Jerusem since he acts on behalf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who are directly representative of Michael and Gabriel. And being a Jerusem citizen, the planetary governor can function as a spokesman for the System Sovereign. The constellation authorities are represented directly by a

Vorondadek Son, the Edentia observer.

4. 관찰하는 지고자

유란시아의 주권은, 행성의 반역이 있는 직후에, **노라티아덱**의 정부가 행성의 권한을 한때 독단적으로 몰수함으로써 더 어렵게 됐다. **유란시아**에는 한 **보론다덱 아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을 대신하는 관찰자이며, **미가엘**의 직접 행동이 없는 가운데 행성 주권의 피신탁자(被信託者)다. 현재 관찰하는 (그리고 언젠가 섭정하는) **지고자**는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스물세 번째로 근무한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통제 하에 여전히 어떤 부류의 행성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찰권은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몰수됐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노라티아덱** 관찰자인 한 **보론다덱 아들**이 행사하는데, 그는 행성 감독관들과 매우 긴밀한 자문 관계를 유지한다. 인종 감독관들이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우두머리들은, 주재하는 **보론다덱** 관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소속돼 있는데, 그는 그들의 자문하는 지도자로서 활동한다.

위기의 때에, 순전히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적이고 주권을 가진 우두머리는, 현재 관찰 근무에 임하고 있는,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덱 아들**일 것이다. (이런 순전히 영적인 문제,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 최고의 권한은 최근에 **유란시아**에 설립된 천사장 체제의 분야별 본부에 배속된, 지휘하는 천사장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인다.)

관찰하는 **지고자**는, 행성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성 정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란시아** 역사상이것이 33번 일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 때에 관찰하는 **지고자**는 **지고자** 섭정 역할을 하는데, 오직 천사장들의 분야별 조직만 제외하고,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역자와 경영인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한다.

보론다덱 섭정정치는, 반역으로 인해 격리된 행성에만 색다르게 있지는 않은데, 이는 사람의 나라들의 문제에 **지고자**들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의 상황에 성좌 통치자들의 우세한 지혜를 개입시킨다.

5. 행성 정부

유란시아의 실제 경영에 대해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분리된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같

4. THE MOST HIGH OBSERVER

114:4.1 (1253.4) The sovereignty of Urantia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onetime arbitrary seizure of planetary authority by the government of Norlatiadek shortly after the planetary rebellion. There is still resident on Urantia a Vorondadek Son, an observer for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in the absence of direct action by Michael, trustee of planetary sovereignty. The present Most High observer (and sometime regent) is the twenty-third thus to serve on Urantia.

114:4.2 (1253.5) There are certain groups of planetary problems which are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jurisdiction over them having been seiz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Authority in these matters is exercised by a Vorondadek Son, the Norlatiadek observer, who maintains very close advisory relations with the planetary supervisors. The race commissioners are very active on Urantia, and their various group chiefs are informally attached to the resident Vorondadek observer, who acts as their advisory director.

114:4.3 (1253.6) In a crisis the actual and sovereign head of the government, excepting in certain purely spiritual matters, would be this Vorondadek Son of Edentia now on observation duty. (In these exclusively spiritual problems and in certain purely personal matters, the supreme authority seems to be vested in the commanding archangel attached to the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at order which was recently established on Urantia.)

114:4.4 (1253.7) A Most High observer is empowered, at his discretion, to seize the planetary government in times of grave planetary crises, and it is of record that this has happened thirty-three times in the history of Urantia. At such times the Most High observer functions as the Most High regent, exercising unquestioned authority over all ministers and administrators resident on the planet excepting only the divisional organization of the archangels.

114:4.5 (1253.8) Vorondadek regencies are not peculiar to rebellion-isolated planets, for the Most Highs may intervene at any time in the affairs of the inhabited worlds, interposing the superior wisdom of the constellation rulers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s of men.

5. THE PLANETARY GOVERNMENT

114:5.1 (1254.1)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Urantia is indeed difficult to describe. There exists no formal government along the lines of universe

은 우주 조직의 계통을 따르는 공식 정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4조연자는 행성의 정부에서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잠정적이고 자문 역할을 하는 최고 행정관이며, 거부권(拒否權)은 관찰하는 **지고자**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절대 권한을 가진 어떤 사법 권한도 행성에서 작용하지 않는다--오직 화해시키는 위원회들이 있을 뿐이다.

스라빔 및 중도자들이 관련되는 대다수의 문제는, 공동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조연자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판결은 모두 화해 위원회, 행성 활동을 위해 구성된 지역 당국, 또는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에게 올리는 상고(上告)에도 지배를 받는다.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 및 **딸**의 물질 체계가 부재(不在)한 것은, 스라빔의 특별한 사역, 그리고 중도 피조물들의 색다른 봉사로서 어느 정도 보상된다. 천사장들, 관찰하는 **지고자**, 및 총독, 이 삼중 현존이, **행성 왕자**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준다.

다소 느슨하게 조직되고 어느 정도 직접 경영되는 이 행성 정부는 기대한 것보다 효과적인데, 이는 천사장들이 베푸는, 시간을 절약하는 도움과 그들의 항상 준비된 회로 때문이고, 이것은 행성의 비상시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매우 자주 활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행성은 여전히 **노라티 아덱** 케도에서 영적(靈的)으로 고립돼 있지만, 비상시에는 천사장들의 회로를 활용함으로써, 이 불리한 조건을 바로 회피할 수 있다. 물론, 1,900년 전에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후로는, 행성 고립이 개별 필사자에게 거의 관계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 경영상 하루는 매일 자문회의(諮問會議)와 함께 시작하는데, 총독, 천사장들의 행성 우두머리, **지고자** 입회인, 감독하는 최고스라빔,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가운데, 또는 행성에 머물게 될 기회가 있는 어떤 학생 방문자들 가운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참석한다.

총독의 직속 경영 내각은 열두 명의 스라빔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행성 진보와 안정을 담당하는 직계 초인간 지휘자로서 활동하는, 특별한 천사들로 구성된 열두 집단의 대리 우두머리들이다.

6.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스라빔

organization, such as separat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departments. The twenty-four counselor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planetary government. The governor general is a provisional and advisory chief executive with the veto power resident in the Most High observer. And there are no absolutely authoritative judicial powers operative on the planet — only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114:5.2 (1254.2) A majority of the problems involving seraphim and midwayers are, by mutual consent, decided by the governor general. But except when voicing the mandates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his rulings are all subject to appeal to conciliating commissions, to local authorities constituted for planetary function, or even to the System Sovereign of Satania.

114:5.3 (1254.3) The absence of the corporeal staff of a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regime of an Adamic Son and Daughter is partially compensated by the special ministry of seraphim and by the unusual services of the midway creatures. The absence of the Planetary Prince is effectively compensated by the triune presence of the archangels, the Most High observer, and the governor general.

114:5.4 (1254.4) This rather loosely organized and somewhat personally administered planetary government is more than expectedly effective because of the timesaving assistance of the archangels and their ever-ready circuit, which is so frequently utilized in planetary emergencies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Technically, the planet is still spiritually isolated in the Norlatiadek circuits, but in an emergency this handicap can now be circumvented through utilization of the archangels' circuit. Planetary isolation is, of course, of little concern to individual mortals since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nineteen hundred years ago.

114:5.5 (1254.5) Each administrative day on Urantia begins with a consultative conference, which is attended by the governor general, the planetary chief of archangels, the Most High observer, the supervising supernaphim, the chief of resident Life Carriers, and invited guests from among the high Sons of the universe or from among certain of the student visitors who may chance to be sojourning on the planet.

114:5.6 (1254.6) The direct administrative cabinet of the governor general consists of twelve seraphim, the acting chiefs of the twelve groups of special angels functioning as the immediate superhuman directors of planetary progress and stability.

6.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진리의 영이 부여짐과 동시에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열두 군단의 특별 스라빔, **스라빙톤** 졸업생들이 그를 따라왔는데, 이들은 어떤 특별한 행성 봉사에 즉각 배치됐다. 이 고위급 천사들은, 행성 감독의 으뜸 스라빔으로 알려져 있고, 행성의 관찰하는 **지고자**의 전면통제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총독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열두 집단의 이 천사들은 거주하는 총독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활동하지만, 각 집단의 대리 우두머리인 열두 명의 스라빔 협의회가 그들을 직접 지휘한다. 또한 이 협의회는, 거주하는 총독의 자원하는 내각{內閣}으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나는 스라빔의 행성 우두머리로서, 스라빔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통솔하며, 또한 **캘리개스차** 탈퇴가 있었을 때 이탈했던, 한때 행성에서 천사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자를 계승하여, **유란시아**에서 자원해서 근무하는 1차 계층의 최고스라빔이다.

행성을 감독하는 열두 군단의 으뜸 스라빔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시기{時期} 천사**. 이들은 현시대의 천사들, 즉 섭리시대의 집단이다. 이 천사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나타난 그 시대의 모자이크 무늬에 맞도록 고안된 바와 같이, 각 세대의 직무를 감시하고 지휘하도록 위탁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는 현재의 시기 천사 단체는, 현재 섭리시대 동안 행성에 배치된 세 번째 집단이다.

2. **진보 천사**. 이 스라빔은, 계속되는 사회 시대들을 진화로 진보시키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진화하는 피조물이 타고난 진취적 성향을 개발하도록 육성하며, 마땅히 처리돼야 하는 대로 처리되도록 끊임없이 일한다. 현재 수고하는 집단은 행성에 배치된 두 번째 집단이다.

3. **종교 수호자**. 이들은 “교회의 천사들”, 즉 지금 있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존재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를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살아남은 이상{理想}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진보 천사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오래되고 일시적인 형태들에 담긴 불멸의 가치를, 새로운, 그래서 덜 고정된 양식{樣式}의 사고{思考}와 행동으로 바뀌게 하려고 항상 애쓴다. 이 천사들은 영적 형식을 놓고 경쟁하지만,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극단적 분파주의, 그리고 무의미한 논쟁으로 발생하는 분열의 근원

114:6.1 (1254.7) When the first governor general arrived on Urantia, concurrent with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of Truth, he was accompanied by twelve corps of special seraphim, Seraphington graduates, who were immediately assigned to certain special planetary services. These exalted angels are known as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nd are, aside from the overcontrol of the planetary Most High observer,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6.2 (1255.1) These twelve groups of angels, while functioning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re immediately directed by the seraphic council of twelve, the acting chiefs of each group. This council also serves as the volunteer cabinet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6.3 (1255.2) As planetary chief of seraphim, I preside over this council of seraphic chiefs, and I am a volunteer supernaphim of the primary order serving on Urantia as the successor of the onetime chief of the angelic hosts of the planet who defaulted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secession.

114:6.4 (1255.3) The twelve corps of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re functional on Urantia as follows:

114:6.5 (1255.4) 1. *The epochal angels*. These are the angels of the current age, the dispensational group. These celestial ministers are intrusted with the oversight and direction of the affairs of each generation as they are designed to fit into the mosaic of the age in which they occur. The present corps of epochal angels serving on Urantia is the third group assigned to the planet during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6 (1255.5) 2. *The progress angels*. These seraphim are intrusted with the task of initiating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the successive social ages. They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inherent progressive trend of evolutionary creatures; they labor incessantly to make things what they ought to be. The group now on duty is the second to be assigned to the planet.

114:6.7 (1255.6) 3. *The religious guardians*. These are the “angels of the churches,” the earnest contenders for that which is and has been. They endeavor to maintain the ideals of that which has survived for the sake of the safe transit of moral values from one epoch to another. They are the checkmates of the angels of progress, all the while seeking to translat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 imperishable values of the old and passing forms into the new and therefore less stabilized patterns of thought and conduct. These angels do contend for spiritual forms, but they are not the source of ultrasectarianism and

은 아니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그렇게 근무하는 다섯 번째다.

4. **국가 수명의 천사**. 이들은 “나팔 부는 천사들”, 즉 **유란시아** 국가의 수명이 정치적으로 실행되도록 지휘하는 존재다. 국제 관계에 대한 전면 통제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집단은, 행성에서 근무하는 네 번째 단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함”은 특별히 이 스랍 분과(分課)의 사역을 통해서다.

5. **종족들의 천사**.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황과 종교적 집단화에 상관없이, 시간세계의 진화하는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존재들. **유란시아**에는 아홉 인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혼합되고 섞여서 현대의 민족이 됐다. 이 스라빔은 종족 책임자들이 배푸는 사역에 매우 가깝게 관여하며,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집단은, **오순절** 직후에 행성에 배치된 원래의 단체다.

6. **미래의 천사**. 이들은 입안(立案)하는 천사인데,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새롭고 진보하는 섭리시대의 더 나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획하며; 이어지는 시대들의 설계자다. 지금 이 행성에 있는 집단은, 현재 섭리시대의 시초부터 그렇게 활동해 왔다.

7. **계몽(啓蒙)의 천사**. **유란시아**는 이제 행성의 교육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세 번째 스라빔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개인, 가정, 집단, 학교, 공동체, 국가, 및 전체 인종들과 관련되는 정신 및 도덕을 훈련하는 데 종사한다.

8. **건강의 천사**. 이들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헌신하는 그런 필사자 대행기관들을 돕도록 배정된 스랍 사역자다. 현재의 단체는 이 섭리시대 동안 여섯 번째로 근무하는 집단이다.

9. **가정(家庭) 스라빔**. **유란시아**는 이제,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인 가정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에 헌신하는, 다섯 번째 천사 사역자 집단의 섬김을 받고 있다.

10. **산업 천사**. 이 스랍 집단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서 산업의 발달 촉진하고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관여한다. 이 단체는 **미가엘**이 증여된 뒤로, 일곱 번 바뀌었다.

11. **기분전환 천사**. 이들은, 오락, 유머, 및 휴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스라빔이다. 그들은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오락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인간의 여가를 더욱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증진

meaningless controversial divisions of professed religionists. The corps now functioning on Urantia is the fifth thus to serve.

114:6.8 (1255.7) 4. *The angels of nation life*. These are the “angels of the trumpets,” directors of the political performances of Urantia national life. The group now functioning in the overcontr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the fourth corps to serve on the planet. It is particularly through the ministry of this seraphic division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114:6.9 (1255.8) 5. *The angels of the races*. Those who work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tim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entanglements and religious groupings. On Urantia there are remnants of nine human races which have commingled and combined into the people of modern times. These seraphim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the race commissioners, and the group now on Urantia is the original corps assigned to the planet soon after the day of Pentecost.

114:6.10 (1255.9) 6. *The angels of the future*. These are the projection angels, who forecast a future age and plan for the realization of the better things of a new and advancing dispensation; they are the architects of the successive eras. The group now on the planet has thus functio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11 (1256.1) 7. *The angels of enlightenment*. Urantia is now receiving the help of the third corps of seraphim dedicated to the fostering of planetary education. These angels are occupied with mental and moral training as it concerns individuals, families, groups, schools, communities, nations, and whole races.

114:6.12 (1256.2) 8. *The angels of health*. These are the seraphic ministers assigned to the assistance of those mortal agencies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health and the prevention of disease. The present corps is the sixth group to serve during this dispensation.

114:6.13 (1256.3) 9. *The home seraphim*. Urantia now enjoys the services of the fifth group of angelic minister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and advancement of the home, the basic institution of human civilization.

114:6.14 (1256.4) 10. *The angels of industry*. This seraphic group is concerned with foster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among the Urantia peoples. This corps has been seven times changed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114:6.15 (1256.5) 11. *The angels of diversion*. These are the seraphim who foster the values of play, humor, and rest. They ever seek to uplift man's recreational diversions and thus to promote the

시키려고 항상 애쓴다. 현재의 단체는 **유란시아**에서 세 번째로 사역하는 계층이다.

12. 초인간 사역의 천사. 이들은 천사들의 천사들, 즉 이 행성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있는 다른 모든 초인간 생명체의 사역에 배정된 스라빔이다. 이 단체는 현 섭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봉사해 왔다.

행성의 정책 또는 과정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 여러 집단의 으뜸 스라빔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대개 총독이 그 차이점을 조정하지만, 그의 모든 결정은, 불일치 속에 포함된 문제점의 본질과 중대성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이 천사 집단들 중에서 어느 것도, 자체의 배정 범위에 대한 직접 또는 독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행동 영역의 직무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이 배속된 인간 활동 영역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성의 환경을 조종하고 환경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스라빔은, 자신의 사명을 실행키 위해서 많은 매개체를 활용한다. 그들은, 관념 교환소, 정신을 집중시키는 자, 및 기획 입안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새롭고 더 높은 생각을 인간 정신 속에 주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인간 지능 속에 이미 나타난 어떤 높은 이상(理想)을 강화시키려고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여러 수단 외에도, 으뜸 스라빔은, 운명 예비 단체의 동원(動員), 훈련, 및 유지를 통해 치명적인 위협에 대비해서 행성의 진보를 보장한다. 이 예비군의 주요 기능은 진화로 이뤄지는 진보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들은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서, 천상의 세력이 준비한 조치이며; 재난을 막는 보증인이다.

7. 운명 예비 단체

운명 예비 단체는, 세계의 상황을 다루는 초인간 행정부의 특별한 봉사에 참여하게 된, 살아 있는 남녀들로 구성된다. 이 단체는, 진화하는 세상에서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잘 배풀도록 돕기 위해, 그 영역의 영(靈) 지휘자들이 각 세대에서 선택한 남녀들로 이뤄진다. 상승 계획의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지를 지닌 필사 피조물이 그런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용할 만하면, 즉시 그들을 이처럼 접촉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 관례다. 따라서, 남녀가 충분한 정신적 수용력, 적절한 도덕적 상태, 및 필수적 영성(靈性)을 갖고 현세의 행동 무대에 나타나자

more profitable utilization of human leisure. The present corps is the third of that order to minister on Urantia.

114:6.16 (1256.6) 12. *The angels of superhuman ministry.* These are the angels of the angels, those seraphim who are assigned to the ministry of all other superhuman life on the planet, temporary or permanent. This corps has serv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17 (1256.7) When these groups of master seraphim disagree in matters of planetary policy or procedure, their differences are usually composed by the governor general, but all his rulings are subject to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issues involved in the disagreement.

114:6.18 (1256.8) None of these angelic groups exercise direct or arbitrary control over the domains of their assignment. They cannot fully control the affairs of their respective realms of action, but they can and do so manipulate planetary conditions and so associate circumstances as favorably to influence the spheres of human activity to which they are attached.

114:6.19 (1256.9)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utilize many agencies for the prosecution of their missions. They function as ideational clearinghouses, mind focalizers, and project promoters. While unable to inject new and higher conceptions into human minds, they often act to intensify some higher ideal which has already appeared within a human intellect.

114:6.20 (1256.10) But aside from these many means of positive action, the master seraphim insure planetary progress against vital jeopardy through the mobilization, training, and maintenanc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e chief function of these reservists is to insure against breakdown of evolutionary progress; they are the provisions which the celestial forces have made against surprise; they are the guarantees against disaster.

7.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114:7.1 (1257.1)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consists of living men and women who have been admitted to the special service of the superhuman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This corps is made up of the men and women of each generation who are chosen by the spirit directors of the realm to assist in the conduct of the ministry of mercy and wisdom to the children of time on the evolutionary worlds. It is the gener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ascension plans to begin this liaison utilization of mortal will creatures immediately they are competent and trustworthy to assume such responsibilities. Accordingly, as

마자, 그들은 곧 필사자 보좌관으로서, 적절한 천상{天上} 집단의 행성 인격체들에게 즉시 배치된다.

인간이 행성 운명의 보호자로서 선택될 때, 즉 이 세상의 경영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계획에서 긴요한 개인이 될 때, 그때 행성의 스라핌 우두머리는 그들이 스랍 단체에 임시로 배속되도록 허락하고, 이 필사자 예비군과 함께 근무하도록, 개인 운명 보호 천사들을 임명한다. 모든 예비군은 자아_의식하는 **조울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적 성취와 영적 달성의 고등 시공우주 궤도들에서 활동한다.

인간거주 세계의 운명 예비 단체에서 근무하도록, 그 영역의 필사자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계 상황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수많은 비상대책 사명을 위해 비밀리에 숙달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2. 인간적인 보답이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기타 대의{大義}에 전심으로 헌신함.

3. 행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비상사태에 대처할, 비범한 융통성과 **유란시아**_이전{以前}에 유용한 체험을 한 **사고 조울사**를 소유함.

행성에서 천상의 봉사에 임하는 각 부서는, 운명의 신분을 가진 이 필사자들로 구성된 연락 단체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보통의 인간거주 세계는 70개의 분리된 운명 단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 세계 직무의 초인적 실행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유란시아**에는, 스랍의 감독을 받는 행성 집단마다 하나씩, 열두 개의 운명 예비 단체가 있다.

열두 집단의 **유란시아** 운명 예비군은, 땅에서 수많은 중대한 직책을 위해 미리 연습하고, 가능성 있는 행성 비상사태에 행동할 준비가 돼있는, 그 구체의 필사 거주자로 구성된다. 연합된 이 단체는 현재 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작은 단체는 41명이고, 가장 큰 것은 172명이다. 20명 미만의 접촉 인격체를 제외하고, 독특한 이 집단의 구성원은, 어떤 행성 위기가 있을 때 작용할 가능성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 필사자 예비군은, 각자 자신이 배속돼 있는 그 단체의 선택을 받고, **사고 조울사**와 스랍 수호자가 사역하는 혼합된 기법에 따라, 정신 속 깊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훈련받고 숙달된다. 무의식 속에서 받는 이 훈련에 수많은 다른 천상의 인격체가 여러 차례 참여하며, 이 모든 특별한 준비

soon as men and women appear on the stage of temporal action with sufficient mental capacity, adequate moral status, and requisite spirituality, they are quickly assigned to the appropriate celestial group of planetary personalities as human liaisons, mortal assistants.

114:7.2 (1257.2) When human beings are chosen as protectors of planetary destiny, when they become pivotal individuals in the plans which the world administrators are prosecuting, at that time the planetary chief of seraphim confirms their temporal attachment to the seraphic corps and appoints personal destiny guardians to serve with these mortal reservists. All reservists have self-conscious Adjusters, and most of them function in the higher cosmic circles of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spiritual attainment.

114:7.3 (1257.3) Mortals of the realm are chosen for service in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on the inhabited worlds because of:

114:7.4 (1257.4) 1. Special capacity for being secretly rehearsed for numerous possible emergency missions in the conduct of various activities of world affairs.

114:7.5 (1257.5) 2. Wholehearted dedication to some special social, economic, political, spiritual, or other cause, coupled with willingness to serve without human recognition and rewards.

114:7.6 (1257.6) 3. The possession of a Thought Adjuster of extraordinary versatility and probable pre-Urantia experience in coping with planetary difficulties and contending with impending world emergency situations.

114:7.7 (1257.7) Each division of planetary celestial service is entitled to a liaison corps of these mortals of destiny standing. The average inhabited world employs seventy separate corps of destiny, which a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superhuman current conduct of world affairs. On Urantia there are twelve reserve corps of destiny, one for each of the planetary groups of seraphic supervision.

114:7.8 (1257.8) The twelve groups of Urantia destiny reservists are composed of mortal inhabitants of the sphere who have been rehearsed for numerous crucial positions on earth and are held in readiness to act in possible planetary emergencies. This combined corps now consists of 962 persons. The smallest corps numbers 41 and the largest 172. With the exception of less than a score of contact personalities, the members of this unique group are wholly unconscious of their preparation for possible function in certain planetary crises. These mortal reservists are chosen by the corps to which they are respectively attached and are likewise trained and rehearsed in the deep mind by the combined technique of Thought Adjuster and seraphic

를 하는 동안 중도자들은 귀중하고 필수적인 봉사를 수행한다.

많은 세계에서는 비교적 잘 적응된 2차 중도 피조물이, **사고 조율사**가 내주(內住)하는 정신에 능숙하게 침투함으로써, 확실히 알맞게 구성된 어떤 필사자의 그 **사고 조율사**와 다양한 정도로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우주 조절이 바로 그렇게 우연히 조합해서, 본 계시가 **유란시아**에서 **영**으로 물질화 됐다.) 진화 세계의 그런 잠재적(潛在的) 접촉 필사자들은 여러 예비 단체에 결집되며, 영적 문명이 증진되고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앞을 내다보는 작은 집단의 이 인격체들을 통해서다. 이처럼 이 운명 예비 단체에 소속된 남녀들은, 중도 피조물의 간섭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조율사**와 다양한 정도로 접촉하지만; 바로 이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문화가 몰락하거나 또는 살아있는 진리의 빛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예비 인격체들이 작용하는, 그런 드문 사회적 비상사태와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동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운명 예비군이 인간 역사의 장을 드물게 장식해 왔다.

예비군은 필수 행성 정보를 보존하는 자로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예비군이 죽음에 임박했을 경우에, 특정한 생생한 자료가, 죽어가는 그 예비군의 정신으로부터 비교적 젊은 후계자에게로 전환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두 **사고 조율사**의 접촉으로 이뤄진다. 그 **조율사**들은, 이 예비 단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확실히 작용한다.

유란시아에서 운명 예비 단체는 영구적 우두머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그 자체의 영구적 협의회들을 갖고 있다. 이 협의회들 중에는, 사법 협의회, 역사 협의회, 정치적 주권에 대한 협의회, 및 기타 많은 것이 포함돼 있다. 때로는 그 예비군 조직에 따라서, 이런 영구적 협의회들은 특정한 역할을 위해, 전체 예비 단체의 명목상(필사자) 우두머리를 임명해 왔다. 그런 예비군 우두머리들의 재직 기간은, 대개 몇 시간 지속되는 문제이며, 당면한 어떤 과제를 성취할 때까지로 국한된다.

유란시아 예비 단체는, **아담족속**과 **안드족속** 시대에 그 구성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라색 혈통이 희석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었고, **오순절** 무렵에는 밀바닥에 도달했으나, 그 후로는 예비 단체의 구성원이 점차 증가해 왔다.

guardian ministry. Many times numerous other celestial personalities participate in this unconscious training, and in all this special preparation the midwayers perform valuable and indispensable services.

114:7.9 (1258.1) On many worlds the better adapted secondary midway creatures are able to attain varying degrees of contact with the Thought Adjusters of certain favorably constituted mortals through the skillful penetration of the minds of the latters' indwelling. (And it was by just such a fortuitous combination of cosmic adjustments that these revelations were materialized in the English language on Urantia.) Such potential contact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mobilized in the numerous reserve corps, and it is, to a certain extent, through these small groups of forward-looking personalities that spiritual civilization is advanced and the Most Highs are able to rule in the kingdoms of men. The men and women of these reserve corps of destiny thus have various degrees of contact with their Adjusters through the intervening ministry of the midway creatures; but these same mortals are little known to their fellows except in those rare social emergencies and spiritual exigencies wherein these reserve personalities func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breakdown of evolutionary culture or the extinction of the light of living truth. On Urantia these reservists of destiny have seldom been emblazoned on the pages of human history.

114:7.10 (1258.2) The reservists unconsciously act as conservators of essential planetary information. Many times, upon the death of a reservist, a transfer of certain vital data from the mind of the dying reservist to a younger successor is made by a liaison of the two Thought Adjusters. The Adjusters undoubtedly function in many other ways unknown to us, in connection with these reserve corps.

114:7.11 (1258.3) On Urantia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ough having no permanent head, does have its own permanent councils which constitute its governing organization. These embrace the judiciary council, the historicity council, the council on political sovereignty, and many others.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corps organization, titular (mortal) heads of the whole reserve corps have been commissioned by these permanent councils for specific function. The tenure of such reservist chiefs is usually a matter of a few hours' duration, being limited to the accomplishment of some specific task at hand.

114:7.12 (1258.4) The Urantia reserve corps had its largest membership in the days of the Adamites and Andites, steadily declining with the dilution of the violet blood and reaching its low point around the time of Pentecost, since which time reserve corps membership has steadily increased.

(**유란시아**에서 우주를_의식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공우주 예비 단체 필사자가 현재 1,000명을 넘어섰는데, 시공우주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그들이 거주하는 이 땅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구성된 이 독특한 집단의 역할의 실제 성질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자신의 세계가 지방우주의 어떤 회로들로부터 영적인 면에서 비교적 격리돼 있다고 해서, 시공우주에서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행성이라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행성에는 세계 직무와 인간의 운명을 아주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초인간적 감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상적 행성 정부에 대해서 기껏해야, 빈약한 관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성 왕자**가 있던 초기 시절부터, **유란시아**는 세상을 성장시키고 인종을 발전시키는 신성한 계획이 유실됨으로 고통당해 왔다. **사타니아**에서 충성스런 인간거주 세계들은, 현재의 **유란시아**처럼 그렇게 통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립된 다른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 행성의 여러 정부는 그렇게 열등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 또는 두 세계만이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고, 몇몇은 약간 더 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계는 너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방우주에서는, 행성 경영의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친히 다시 도착할 때까지, 행성 정부와 경영에 거의 변화가 없으리라는 견해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 일찍이 아니라면 이때, 전면적 변화가 행성 관리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영의 그런 변경이 어떤 본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추측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바돈** 우주에 있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전체 역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전례가 없다. **유란시아**의 미래 정부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 가운데 두드러진 한 가지는, 천사장들의 회로와 분야별 본부가 이 행성에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여러 협의회에서는, 고립된 너희 세계를 잊지 않고 있다. **유란시아**는 죄로 인해 비난 받고, 반역으로 인해 신성한 보호에서 떨어져 나간, 시공우주 고아가 아니다. **우버사**로부터 **살빙톤**까지 그리고 **에루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에서도, 그들은 모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유란시아**에 지금 거주하는 너희 필사자들은, 마치 구체가 불성실한 한 **행성 왕자**에게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지고, 똑같이 충실하게, 아니 그보다 더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참말이다.

[**유란시아**에 주둔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

114:7.13 (1258.5) (The cosmic reserve corps of universe-conscious citizens on Urantia now numbers over one thousand mortals whose insight of cosmic citizenship far transcends the sphere of their terrestrial abode, but I am forbidden to reveal the real nature of the function of this unique group of living human beings.)

114:7.14 (1258.6) Urantia mortals should not allow the comparative spiritual isolation of their world from certain of the local universe circuits to produce a feeling of cosmic desertion or planetary orphanage. There is operative on the planet a very definite and effective superhuman supervision of world affairs and human destinies.

114:7.15 (1258.7) But it is true that you can have, at best, only a meager idea of an ideal planetary government. Since the early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Urantia has suffered from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of world growth and racial development. The loyal inhabited worlds of Satania are not governed as is Urantia. Nevertheless, compared with the other isolated worlds, your planetary governments have not been so inferior; only one or two worlds may be said to be worse, and a few may be slightly better, but the majority are on a plane of equality with you.

114:7.16 (1259.1) No one in the local universe seems to know when the unsettled status of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will terminate. The Nebadon Melchizedeks are inclined to the opinion that little change will occur in the planetary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until Michael's second personal arrival on Urantia. Undoubtedly at this time, if not before, sweeping changes will be effected in planetary management. But as to the nature of such modifications of world administration, no one seems to be able even to conjecture. There is no precedent for such an episode in all the history of the inhabited worlds of the universe of Nebadon. Among the many things difficult to understand concerning the future government of Urantia, a prominent one is the location on the planet of a circuit and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e archangels.

114:7.17 (1259.2) Your isolated world is not forgotten in the counsels of the universe. Urantia is not a cosmic orphan stigmatized by sin and shut away from divine watchcare by rebellion. From Uversa to Salvington and on down to Jerusem, even in Havona and on Paradise, they all know we are here; and you mortals now dwelling on Urantia are just as lovingly cherished and just as faithfully watched over as if the sphere had never been betrayed by a faithless Planetary Prince, even more so. It is eternally true,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114:7.18 (1259.3)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했음]

제 115편. 지존하신 분

⇨ 114

유란시아 책

116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 115편
지존하신 분

섹션

소개

1. 개념 틀의 상대성
2. 지존성의 절대 기초
3. 원본, 실제, 및 잠재
4. 최상급 실체의 근원
5. 지존자와 낙원 삼위일체의 관계
6. 지존자와 삼극체의 관계
7. 지존자의 본성

PAPER 115

THE SUPREME BEING

SECTIONS

Introduction

1. Relativity of Concept Frames
2. The Absolute Basis for Supremacy
3. Original, Actual, and Potential
4. Sources of Supreme Reality
5.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Paradise Trinity
6.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Triadities
7. The Nature of the Supreme

소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신분인 것은 엄청난 천족관계다. **지존자 하나님**께는, 성취{成就}가 신분을 얻는 필수조건이다--누구든지, 무엇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INTRODUCTION

115:0.1 (1260.1) WITH God the Father, sonship is the great relationship. With God the Supreme, achievement is the prerequisite to status — one must do something as well as be something.

1. 개념 틀의 상대성

높거나 낮은 모든 정신이, 한 우주 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타고난 역량이 없다면, 부분적이고 미완성이며 진화하는 지능들은 총괄 우주에서 무기력할 것인데, 합리적 사고 원형{原型}의 형성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이 결말을 추론할 수 없고 참 근원을 꿰뚫어볼 수 없다면, 그런 정신은, 정신이_창작한 이 여러 가설의 틀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결말을 가정할 것이고 근원을 고안할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의 사고를 위한 그런 우주 틀은 합리적 지능 작동에 필수적이지만, 그런 틀은, 정도가 크던지 작던지, 예외 없이 잘못돼 있다.

우주에 대한 개념 틀은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1. RELATIVITY OF CONCEPT FRAMES

115:1.1 (1260.2) Partial, incomplete, and evolving intellects would be helpless in the master universe, would be unable to form the first rational thought pattern, were it not for the innate ability of all mind, high or low, to form a *universe frame* in which to think. If mind cannot fathom conclusions, if it cannot penetrate to true origins, then will such mind unfailingly postulate conclusions and invent origins that it may have a means of logical thought within the frame of these mind-created postulates. And while such universe frames for creature thought are indispensable to rational intellectual operations, they are, without exception, erroneous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115:1.2 (1260.3) Conceptual frames of the universe

뿐이며; 유용한 발판이지만, 넓어지는 시공우주에 대한 납득이 확장되기 전에 결국 무너져야 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에 대한 이해, 도덕성, 윤리, 의무, 사랑, 신성{神性}, 실존, 존재, 목적, 운명, 시간, 공간, 심지어 **신격**도,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분이지만, **아버지**는 사람의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며; 그럼에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한 것은, **오르본톤**, **하보나**, 및 **낙원**에서 달성될 **신격**에 대한, 필사자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인해 증대될 것이다. 사람은 필사자의 우주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그 속에 사고{思考}를 펼칠 수 있는 다른 더 높은 틀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온갖 우주에 대한 필사자의 납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공우주 실체의 다양한 수준을, 유한, 유한절대, 및 절대 수준이라고 명명했다. 이것들 가운데 오직 절대적인 것만이, 무조건 영원하고 진정으로 실존적이다. 유한절대인 것과 유한한 것은, 원래의 근본적인 무한성의 절대 실체에서 나온, 파생물, 변경물, 축소물, 및 희석물이다.

유한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덕분에 존재한다. 높거나 낮은 유한한 피조물은, 시공 우주 질서 안에서 유한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이론{理論}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왔지만, 결국 유한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주는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조상 전래의 존재들, 즉 **창조주**들 또는 어버이들의 이전{以前} 행위와 선재{先在}하는 의지작용에 호소하지 않은 채, 유한한 피조물은 어떻게 자신이 개인으로 실존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도 없다.

2. 지존성의 절대 기초

실존적 관점에서 볼 때, 성단{星團}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 없는데, 이는 **자존자**{自存者} 안에 고유하게 있는 완벽한 무한대는 일곱 **절대자** 안에 영원히 현존하고, 삼중체{三重體} 안에서 기능적으로 연합되며, 삼극체{三極體} 안에서 전달돼 연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러 절대 연합 속에 무한대가 그렇게 실존적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이, 새로운 시공우주 체험의 실현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유한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은 잠재적인 많은 것, 즉 현재의 실제성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속하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가치는 우주 실체에서 독특한 요소다. 우리는 무한하고 거룩한 어떤 것의 가치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무한한 **신격**의 관계들에서, **의미**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변경될 수는 있음을 발견한다. 체험적 우주들에게는, 실체 의미를 더 많이 납득함으로써 신성한 가치조차 실제로서 늘어난다.

are only relatively true; they are serviceable scaffolding which must eventually give way before the expansions of enlarging cosmic comprehension. The understanding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morality, ethics, duty, love, divinity, origin, existence, purpose, destiny, time, space, even Deity, are only relatively true. God is much, much more than a Father, but the Father is man's highest concept of God; nonetheless, the Father-Son portrayal of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will be augmented by those supermortal conceptions of Deity which will be attained in Orvonton, in Havona, and on Paradise. Man must think in a mortal universe fram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he cannot envision other and higher frames within which thought can take place.

115:1.3 (1260.4) In order to facilitate mortal comprehens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diverse levels of cosmic reality have been designated as finite, absonite, and absolute. Of these only the absolute is unqualifiedly eternal, truly existential. Absonites and finites are derivatives, modifications, qualifications, and attenuations of the original and primordial absolute reality of infinity.

115:1.4 (1260.5) The realms of the finite exist by virtue of the eternal purpose of God. Finite creatures, high and low, may propound theories, and have done so, as to the necessity of the finite in the cosmic economy, but in the last analysis it exists because God so willed. The universe cannot be explained, neither can a finite creature offer a rational reason for his own individual existence without appealing to the prior acts and pre-existent volition of ancestral beings, Creators or procreators.

2. THE ABSOLUTE BASIS FOR SUPREMACY

115:2.1 (1261.1) From the existential standpoint, nothing new can happen throughout the galaxies, for the completion of infinity inherent in the I AM is eternally present in the seven Absolutes, is functionally associated in the triunities, and is transmutively associated in the triadities. But the fact that infinity is thus existentially present in these absolute associations in no way makes it impossible to realize new cosmic experientials. From a finite creature's viewpoint, infinity contains much that is potential, much that is on the order of a future possibility rather than a present actuality.

115:2.2 (1261.2) Value is a unique element in universe reality. We do not comprehend how the value of anything infinite and divine could possibly be increased. But we discover that *meanings* can be modified if not augmented even in the relations of infinite Deity. To the experiential universes even divine values are increased as actualities by

모든 체험 수준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전체 기획은, 겉으로 보기에 잠재성이 실제성으로 전환되는 문제이며; 이 변형은, 공간 잠재력, 정신 잠재력, 및 영 잠재력의 영역들과 똑같이 관계있다.

시공우주에서 가능한 것을 실제 실존으로 변화시키는 명백한 방법은 수준마다 다양한데, 유한 세계에서는 체험으로 진화하고, 유한절대 세계에서는 체험으로 결말에 이른다. 실존적 무한은 정말로 만물을 포함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만물을 포함하는 바로 이런 성질은, 부득이, 진화로 유한한 체험을 겪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체험적 성장 가능성은, **지존자**에게 그리고 그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삼극체 관계들을 통해서 우주 실상이 된다.

3. 원본, 실제, 및 잠재

절대 시공우주는 개념적으로 한계가 없으며; 이 근원적 실체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무한을 제한시키고 순수한 영원성 개념을 약화시킬 것이다. 무한한 영원, 영원한 무한이라는 관념은, 범위에 제한이 없고 사실상 절대적이다. 무한한 실체 또는 실체의 무한성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언어가 **유란시아**에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도 없다. 사람은 무한한 시공우주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요,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시작이 없이, 끝이 없는 실존에 대해 일그러진 그림자와 알파벳해진 생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납득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역량을 벗어난다.

정신은, **절대자**라는 실체의 통일을 먼저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고는, **절대자** 개념을 파악하기를 결코 바랄 수 없다. 정신은 모든 차이를 통합하고 있지만, 다양성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정신은 이해하는 개념을 공식화하려고 애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무한의 원초적 평형상태는, 인간이 납득하려고 애쓰기 전에 분할(分割)될 필요가 있다. 무한에는 통일성이 있고, 이것은 본 문서들에서 **자존자**로서--곧 피조물 정신이 설정한 최초의 가설로서-- 표현됐다. 그러나 이 통일성이 어떻게 해서, 이중성, 삼중성, 및 다양성이 되면서도, 여전히 무조건적 통일성을 이루는지, 피조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럿으로 인격화되심과 동시에 나뉘지 않은 **삼위일체 신격**이심, 이것을 사람이 잠깐 멈춰서 심사숙고 할 때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이 무한대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이다. 무한은, 한 편에서는 **통일**인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끝이나 한계가 없는 **다양성**이다. 유한한 지성체들

enlarged comprehension of reality meanings.

115:2.3 (1261.3) The entire scheme of universal creation and evolution on all experiencing levels is apparently a matter of the conversion of potentialities into actualities; and this transmutation has to do equally with the realms of space potency, mind potency, and spirit potency.

115:2.4 (1261.4) The apparent method whereby the possibilities of the cosmos are brought into actual existence varies from level to level, being experiential evolution in the finite and experiential eventuation in the absonite. Existential infinity is indeed unqualified in all-inclusiveness, and this very all-inclusiveness must, perforce, encompass even the possibility for evolutionary finite experiencing. And the possibility for such experiential growth becomes a universe actuality through triodity relationships impinging upon and in the Supreme.

3. ORIGINAL, ACTUAL, AND POTENTIAL

115:3.1 (1261.5) The absolute cosmos is conceptually without limit; to define the extent and nature of this primal reality is to place qualifications upon infinity and to attenuate the pure concept of eternity. The idea of the infinite-eternal, the eternal-infinite, is unqualified in extent and absolute in fact. There is no langu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of Urantia adequate to express the reality of infinity or the infinity of reality. Man, a finite creature in an infinite cosmos, must content himself with distorted reflections and attenuated conceptions of that limitless, boundless, never-beginning, never-ending existence the comprehension of which is really beyond his ability.

115:3.2 (1261.6) Mind can never hope to grasp the concept of an Absolute without attempting first to break the unity of such a reality. Mind is unifying of all divergencies, but in the very absence of such divergencies, mind finds no basis upon which to attempt to formulate understanding concepts.

115:3.3 (1261.7) The primordial stasis of infinity requires segmentation prior to human attempts at comprehension. There is a unity in infinity which has been expressed in these papers as the I AM — the premier postulate of the creature mind. But never can a creature understand how it is that this unity becomes duality, triunity, and diversity while yet remaining an unqualified unity. Man encounters a similar problem when he pauses to contemplate the undivided Deity of Trinity alongside the plural personalization of God.

115:3.4 (1262.1) It is only man's distance from infinity that causes this concept to be expressed as one word. While infinity is on the one hand UNITY, on the other it is DIVERSITY without end or limit.

이 관찰할 때, 무한은 피조물의 철학과 유한한 형이상학에서 최대의 역설이다. 사람의 영적 본성이 무한하신 **아버지**께 경배하는 체험까지 도달하더라도, 사람의 지적 납득 수용력은, **지존하신 분**이라는 최대 개념작용으로 인해 소진된다. **지존자**를 넘어서면, 개념들은 점점 더 이름뿐인 상태가 되고, 실체의 참된 명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며; 개념들은, 피조물이 유한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초월유한 쪽으로 점점 더 투사{投射}하게 된다.

절대 수준에 관한 하나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국면의 가정을 포함한다:

1. **원본존재**. 무조건적인 **제1 근원 및 중심** 개념, 즉 모든 실체를 기원시키는 **자존자**의 근원의 형태화.

2. **실재존재**. 실체인 세 **절대자**, 즉 **제2 근원 및 중심**, **제3 근원 및 중심**, 그리고 **낙원 근원 및 중심**의 합동.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및 **낙원 섬**으로 이뤄진 이 삼극체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성이 실제로 계시된 것이다.

3. **잠재존재**. 잠재성의 세 **절대자**, 즉 **신격 절대자**, **무조건 절대자**, 및 **우주 절대자**의 합동. 이 실존적 잠재성의 삼극체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이 잠재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원본존재, **실재존재**, 및 **잠재존재**의 상호연합은, 무한대 속에서 균형상태를 초래하고, 우주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초래하며; 성장은, **칠중존재**, **지존자**, 및 **궁극자**의 본성이다.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 연합할 때, 잠재성은 절대적인 반면, 실재성은 발생적이며; **제2 근원 및 중심**, **제3 근원 및 중심**, 그리고 **낙원 근원 및 중심**의 연합에서는 실재성이 절대적인 반면, 잠재성은 발생적이며; **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성에, 실체성이나 잠재성이 현존하는지 아니면 발생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아버지**는 계신다.

시간 관점에서, **실재존재**는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며; **잠재존재**는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며; **원본존재**는 지금 있는 것이다. 영원 관점에서, **원본존재**, **실재존재**, 및 **잠재존재** 사이의 차이점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이런 삼중적 특질은, **낙원**의_영원성 수준에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영원 속에서는 만물이 지금 있다--다만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피조물 관점에서, 실재성은 물질이고 잠재성은 수용력이다. 실재성은 최고중심에 존재하고, 거기서 주변의 무한대 속으로 확장하며; 잠재성은 무한대 주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모든 것의

Infinity, as it is observed by finite intelligences, is the maximum paradox of creature philosophy and finite metaphysics. Though man's spiritual nature reaches up in the worship experience to the Father who is infinite, man's intellectual comprehension capacity is exhausted by the maximum conception of the Supreme Being. Beyond the Supreme, concepts are increasingly names; less and less are they true designations of reality; more and more do they become the creature's projection of finite understanding toward the superfinite.

115:3.5 (1262.2) One basic conception of the absolute level involves a postulate of three phases:

115:3.6 (1262.3) 1. *The Original*. The unqualified concep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at source manifestation of the I AM from which all reality takes origin.

115:3.7 (1262.4) 2. *The Actual*. The un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actuality, the Second, Third, and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This triodity of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Paradise Isle constitutes the actual revela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3.8 (1262.5) 3. *The Potential*. The un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e Deity, Unqualified, and Universal Absolutes. This triodity of existential potentiality constitutes the potential revela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3.9 (1262.6) The interassociation of the Original,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yields the tensions within infinity which result in the possibility for all universe growth; and growth is the nature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15:3.10 (1262.7) In the association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potentiality is absolute while actuality is emergent; in the association of the Second, Third, and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actuality is absolute while potentiality is emergent; in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cannot say that either actuality or potentiality is either existent or emergent — *the Father is*.

115:3.11 (1262.8) From the time viewpoint, the Actual is that which was and is; the Potential is that which is becoming and will be; the Original is that which is. From the eternity viewpoi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are not thus apparent. These triune qualities are not so distinguished on Paradise-eternity levels. In eternity all is — only has all not yet been revealed in time and space.

115:3.12 (1262.9) From a creature's viewpoint, actuality is substance, potentiality is capacity. Actuality exists centermost and expands therefrom into peripheral infinity; potentiality comes inward from

중심에 모인다. 원본성(原本性)이란, 잠재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실재를 잠재하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실체의 이중적 순환 활동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를 균형 잡는 무엇이다.

잠재성의 세 **절대자**는, 순전히 영원한 시공우주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절대적인 그런 수준들에서는 결코 작용할 수 없다. 실체의 하강하는 수준들에서는, 잠재성의 삼극체가, **궁극자**와 함께, 그리고 **지존자**에게서 나타난다. 잠재하는 것은 어떤 준절대 수준에서, 부분별로는 시간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지만, 총체로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뤄지는데, 개별적인 것들을 항상 고려하시지는 않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신다.

시공우주에 실존하는 것들의 중심은 실체성의 삼극체에 있으며; 영이든지, 정신이든지, 에너지든지, 모두가 이 **아들**, **영**, 및 **낙원** 연합에 집중한다. 영(靈)인 **아들**의 인격은 온 우주에 두루, 모든 인격체의 근본 원형이다. **낙원 섬**의 내용이 근본 원형이고, **하보나**는 그 원형의 완전한 계시(啓示)이고, 연방우주는 그 원형이 완성돼 가는 계시이다. **공동 행위자**는 동시적으로, 시공우주 에너지를 정신으로 활성화한 것, 영(靈) 목적을 개념화한 것, 그리고 물질 수준의 엄밀한 인과관계를 영적 수준에서 의도하는 목적 및 동기와 결합한 것이다. 유한한 우주에서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해서, **아들**, **영**, 및 **낙원**은, **궁극자**가 **지존자** 안에서 좌우되고 제한되듯이,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궁극자**에 소속돼서 활동한다.

사람이 **낙원** 상승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신격**의) 실체성이다. 사람이 그 탐구 속에서 진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신답게 되는) 잠재성이다. 실제하는 사람, 잠재하는 사람, 및 영원한 사람이 공존하고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는 **원본 존재**다.

시공우주의 최종 원동력은, 실체가 잠재성에서 실체성으로 연속해서 전환되는 것과 상관있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변질에 끝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잠재존재**와 **실체존재**가 모두 **원본존재**(곧 **자존자**) 안에 회로화 돼있으므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일체감 때문에 우주의 발전적 진보에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영원토록 불가능하다. **자존자**와 일체가 되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진보의 끝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자존자**의 잠재력의 실체성이 절대적이고, **자존자**의 실체들의 잠재성 역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실로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잠재하는 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인간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새 역량을 개발시킨다. 자녀 마다 그 안에 어른이 살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 안에는 모른시아 진보자가 거한다.

the infinity periphery and converge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Originality is that which first causes and then balances the dual motions of the cycle of reality metamorphosis from potentials to actuals and the potentializing of existing actuals.

115:3.13 (1262.10)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are operative on the purely eternal level of the cosmos, hence never function as such on subabsolute levels. On the descending levels of reality the triodity of potentiality is manifest with the Ultimate and upon the Supreme. The potential may fail to time-actualize with respect to a part on some subabsolute level, but never in the aggregate. The will of God does ultimately prevail, not always concerning the individual but invariably concerning the total.

115:3.14 (1263.1) It is in the triodity of actuality that the existents of the cosmos have their center; be it spirit, mind, or energy, all center in this association of the Son, the Spirit, and Paradise. The personality of the spirit Son is the master pattern for all personality throughout all universes. The substance of the Paradise Isle is the master pattern of which Havona is a perfect, and the superuniverses are a perfecting, revelation. The Conjoint Actor i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mind activation of cosmic energy, the conceptualization of spirit purpose, and the integration of the mathematical causes and effects of the material levels with the volitional purposes and motives of the spiritual level. In and to a finite universe the Son, Spirit, and Paradise function in and upon the Ultimate as he is conditioned and qualified in the Supreme.

115:3.15 (1263.2) Actuality (of Deity) is what man seeks in the Paradise ascent. Potentiality (of human divinity) is what man evolves in that search. The Original is what makes possible th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of man the actual, man the potential, and man the eternal.

115:3.16 (1263.3) The final dynamics of the cosmos have to do with the continual transfer of reality from potentiality to actuality. In theory, there may be an end to this metamorphosis, but in fact, such is impossible since the Potential and the Actual are both encircuited in the Original (the I AM), and this identification makes it forever impossible to place a limit on the developmental progression of the universe. Whatsoever is identified with the I AM can never find an end to progression since the actuality of the potentials of the I AM is absolute, and the potentiality of the actuals of the I AM is also absolute. Always will actuals be opening up new avenues of the realization of hitherto impossible potentials — every human decision not only actualizes a new reality in human experience but also opens up a new capacity for human growth. The man lives in every child, and the morontia progressor is resident in the mature

성장의 기초는--곧 절대적인 실제들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가능성--곧 절대적인 잠재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성장이 정지된 상태는 전체 시공우주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철학자들은 끝이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한된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여러 종말{終末}, 즉 활동의 종결들이 있지만, 더 높은 우주 수준에서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종말은 없고, 다만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있을 뿐이다. 총괄우주의 주요 만성적{慢性的} 성향은, 여러 우주 시대, 즉 **하보나** 시대, 연방우주 시대, 및 외부 우주 시대와 관계있다. 그러나 연속된 관계의 이 기본적 구분들조차, 끝없는 영원의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상대적 경계표에 불과하다.

지존하신 분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마침내 꿰뚫어보더라도, 이는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개념 수준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신성의 유한 절대 특성을, 진보하는 피조물에게 열어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4. 최상급 실체의 근원

지존자 하나님의 기원{起源}에 대한 어떤 연구든지, 반드시 **낙원 삼위일체**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삼위일체**가 원본 **신격**인 반면, **지존자**는 파생된 **신격**이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연구든지, 반드시 실존적 삼극체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에 관련해서) 모든 절대적 실제성과 모든 무한한 잠재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하는 **지존자**는, 유한한 실존 수준에서,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곧 변형시키는--, 절정에 이르고 몸소 결단하는 중심점이다. 두 가지 삼극체, 즉 실제적인 삼극체와 잠재적인 삼극체는, 우주들에서 성장하는 상호 관계들 전체를 포함한다.

지존자의 근원은, **낙원 삼위일체**에--영원하고, 실제적이고, 나뉘지 않은 **신격**에-- 있다. 무엇보다도, **지존자**는 영 인격자이며, 이 영 인격자는 **삼위일체**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지존자**는 성장하는--곧 진화로 성장하는-- **신격**이고, 이 성장은, 실제적인 삼극체와 잠재적인 삼극체, 이 둘로부터 파생된다.

무한한 삼극체들이 유한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잠시 멈춰서, 그들의 바로 그 무한성이 유한의 잠재성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바라며; 무한성은 가장 낮고 가장 제한된 실존으로부터, 가장 높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실체에 이

God-knowing man.

115:3.17 (1263.4) Statics in growth can never appear in the total cosmos since the basis for growth — the absolute actuals — is unqualified, and since the possibilities for growth — the absolute potentials — are unlimited. From a practical viewpoint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end*.

115:3.18 (1263.5) From a circumscribed view there are, indeed, many ends, many terminations of activities, but from a larger viewpoint on a higher universe level, there are no endings, merely transitions from one phase of development to another. The major chronicity of the master universe is concerned with the several universe ages, the Havona, the superuniverse, and the outer universe ages. But even these basic divisions of sequence relationships cannot be more than relative landmarks on the unending highway of eternity.

115:3.19 (1263.6) The final penetration of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the Supreme Being could only open up to the progressing creature those absonite qualities of ultimate divinity which lie beyond the concept level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4. SOURCES OF SUPREME REALITY

115:4.1 (1263.7) Any consideration of the *origins* of God the Supreme must begin with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Trinity is original Deity while the Supreme is derived Deity. Any considera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must give consideration to the existential triodities, for they encompass all absolute actuality and all infinite potentiality (in conjunction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 evolutionary Supreme is the culminating and personally volitional focus of the transmutation — the transformation — of potentials to actuals in and on the finite level of existence. The two triodities, actual and potential, encompass the totality of the interrelationships of growth in the universes.

115:4.2 (1264.1) The source of the Supreme is in the Paradise Trinity — eternal, actual, and undivided Deity. The Supreme is first of all a spirit person, and this spirit person stems from the Trinity. But the Supreme is secondly a Deity of growth — evolutionary growth — and this growth derives from the two triodities, actual and potential.

115:4.3 (1264.2) If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the infinite triodities can function on the finite level, pause to consider that their very infinity must in itself contain the potentiality of the finite; infinity encompasses all things ranging from the lowest and most qualified finite existence to the highest

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무한이 유한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는, 이 무한이 실제로 어떻게 유한한 존재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는 **사고 조울사**는, 심지어 절대적 **하나님**께서도 (절대자로서) 의지를 지닌 모든 우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와도 직접 접촉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영원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다.

실재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을 집단으로 포함하는 삼극체들은, **지존하신 분**과 관련하여, 유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기법은 직접적인 동시에 간접적인데, 즉:삼극체 관계들이 **지존자** 안에서 직접 반응하는 한, 직접적이고, 그 관계들이 유한절대자의 결말에 이른 수준을 통해서 유래되는 한 간접적이다.

최상의 실체는, 유한한 실체의 총합인데, 외부 공간의 무조건적 잠재성과 만유의 중심에 있는 무조건적 실체성 사이에서, 역동적 성장 과정에 있다. 유한 영역은, **낙원**의 유한절대 대리자들과 시간세계의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협동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화 한다. 위대한 세 잠재적 **절대자**의 제한된 가능성을 성숙시키는 행동은, **총괄우주의 설계자**들과 그 초월 동역자들의 유한절대적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결말이 어떤 성숙된 지점에 도달할 때,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을 사실적 존재로 만드는, 오랜 세월의 과제에 착수하기 위해서 **낙원**으로부터 나타났다.

지존성의 성장은 삼극체들에서 기원되며;**지존자**의 영{靈} 인격자는 **삼위일체**에서 기원되지만;**전능자**의 권력 특권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 성립에 입각하고, 한편 **전능한 지존자**의 권능 특권을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와 결합시키는 것은 **공동 행위자**의 사역 덕분에 일어나는데, 이 **공동 행위자**는 이 진화하는 **신격** 안에 결합된 요소로서 **지존자**의 정신을 증여했다.

5. 지존자와 낙원 삼위일체의 관계

지존하신 분은, 자신의 인격적 본성 및 영 본성의 실체를 위해서 **낙원 삼위일체**의 실존과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지존자**의 성장은 삼극체 관계의 문제인 반면, **지존자 하나님**의 영{靈} 인격은 **낙원 삼위일체**에 의존하고 그로부터 파생했는데, **낙원 삼위일체**는 완전하고 무한한 안정성의 절대 중심이자 근원으로 항상 남아있고, 그 둘레에서 **지존자**의 진화 성장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and unqualifiedly absolute realities.

115:4.4 (1264.3) It is not so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the infinite does contain the finite as it is to understand just how this infinite actually is manifest to the finite. But the Thought Adjusters indwelling mortal man are one of the eternal proofs that even the absolute God (as absolute) can and does actually make direct contact with even the lowest and least of all universe will creatures.

115:4.5 (1264.4) The triodities which collectively encompass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are manifest on the finite level in conjunction with the Supreme Being. The technique of such manifestation is both direct and indirect: direct in so far as triodity relations repercuss directly in the Supreme and indirect in so far as they are derived through the eventuated level of the absonite.

115:4.6 (1264.5) Supreme reality, which is total finite reality, is in process of dynamic growth between the unqualified potentials of outer space and the unqualified actual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finite domain thus factualiz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absonite agencies of Paradise and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The act of maturing the qualified possibilities of the three great potential Absolutes is the absonite func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their transcendental associates. And when these eventualities have attained to a certain point of maturation,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emerge from Paradise to engage in the age-long task of bringing the evolving universes into factual being.

115:4.7 (1264.6) The growth of Supremacy derives from the triodities;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from the Trinity; but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are predicated on the divinity successes of God the Sevenfold, while the conjoining of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Supreme with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takes place by virtue of the ministry of the Conjoint Actor, who bestowed the mind of the Supreme as the conjoining factor in this evolutionary Deity.

5.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PARADISE TRINITY

115:5.1 (1264.7) The Supreme Being is absolutely dependent on the existence and action of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reality of his personal and spirit nature. While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a matter of triodity relationship, the spirit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is dependent upon, and is derived from, the Paradise Trinity, which ever remains as the absolute center-source of perfect

삼위일체의 기능은 **지존자**의 기능에 관련되는데, 이는 **삼위일체**가 **지존성**의 기능의 수준을 포함해서 모든 수준(곧 전체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보나** 시대가 연방우주 시대에 게 길을 비켜준 것처럼, **삼위일체**가 직접 창조했다고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은, **낙원 신격**들의 자녀들이 창조 활동을 하도록 길을 양보한다.

6. 지존자와 삼극체의 관계

실제성의 삼극체는 **하보나** 이후{以後} 시절에 계속 직접 작용하며, **낙원**의 인력은 물질 실존의 기본 단위들을 붙잡고,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은 영 실존의 근본 가치에 대해 직접 작용하며,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은 지적 실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을 틀림없이 붙잡는다.

그러나 창조 활동의 각 단계가 미지의 공간을 통해서 뻗어나갈 때, 그 활동은, 중앙에 자리 잡은 창조 세력들과 신성한 인격체들--곧 절대적인 **낙원 섬**과 거기에 거주하는 무한한 **신격**들--의 직접 행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가 점점 멀리 작용하고 존재한다. 따라서 시공우주가 실존하는 이 연속되는 수준들은, 무한한 세 **절대자**의 잠재성 안에서 이뤄지는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지존하신 분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낙원 섬**의 비인격 실체들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공우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이 세 실체성이 절대적임을 마땅히 고려해서 이렇게 진술하지만, **지존자**의 성장은 **신격**과 **낙원**의 이 실제성에 입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생기는 발전과도 관련된다.

지존자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창조주**들과 피조물이 **하나님**다움에 도달함에 따라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유한한 **신격**은 또한, 피조물과 **창조주**가 광우주의 유한한 가능성을 통달하는 결과로 성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지존자**의 움직임은 이중적인데, 즉:내적{內的}으로는 **낙원**과 **신격**을 향해 집중해서 움직이고, 외적{外的}으로는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무한성을 향해서 광범하게 움직인다.

현재 우주 시대에는, 이런 이중적 움직임이, 광우주의 상승하는 인격체와 하강하는 인격체들 속에서 드러난다.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과 그들의 신성한 모든 동역자는, 바깥쪽을 향하면서 발

and infinite stability around which the evolutionary growth of the Supreme progressively unfolds.

115:5.2 (1265.1) The function of the Trinity is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Supreme, for the Trinity is functional on all (total) levels, including the level of the function of Supremacy. But as the age of Havona gives way to the age of the superuniverses, so does the discernible action of the Trinity as immediate creator give way to the creative acts of the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6.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TRIODITIES

115:6.1 (1265.2) The triodity of actuality continues to function directly in the post-Havona epochs; Paradise gravity grasps the basic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operates directly upon the fundamental values of spirit existence, and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unerringly clutches all vital meanings of intellectual existence.

115:6.2 (1265.3) But as each stage of creative activity proceeds out through uncharted space, it functions and exists farther and farther removed from direct action by the creative forces and divine personalities of central emplacement — the absolute Isle of Paradise and the infinite Deities resident thereon. These successive levels of cosmic existence become, therefore, increasingly dependent upon developments within the three Absolute potentialities of infinity.

115:6.3 (1265.4) The Supreme Being embraces possibilities for cosmic ministry that are not apparently manifested in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or the nonpersonal realities of the Isle of Paradise. This statement is made with due regard for the absoluteness of these three basic actualities, but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not only predicated on these actualities of Deity and Paradise but is also involved in developments within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115:6.4 (1265.5) The Supreme not only grows as the Creators and creatu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attain to Godlikeness, but this finite Deity also experiences growth as a result of the creature and Creator mastery of the finite possibilities of the grand universe. The motion of the Supreme is twofold: intensively toward Paradise and Deity and extensively toward the limitlessness of the Absolutes of potential.

115:6.5 (1265.6)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dual motion is revealed in the descending and ascending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and all their divine

산하는 **지존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며, 한편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는, 안쪽을 향하면서 집중하는 **지존성**의 경향을 가리킨다.

유한한 **신격**은, **낙원**과 거기 있는 **신격**들을 향해서 안쪽으로, 그리고 무한과 거기 있는 **절대자**들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항상 이중적 상호관계를 추구한다.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인격화하고, 권력 통제관들 안에서 동력을 얻는, **낙원**의 창조적 신성{神性}이 힘차게 분출하는 것은, **지존성**의 방대한 외부과동이 잠재성의 영역 안으로 돌진함을 의미하며, 한편 광우주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끝없는 행렬은, **지존성**의 강력한 내부과동이 **낙원 신격**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돌진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움직임을 때때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우리는, 광우주의 인격체들과 원형들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진화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지존성의 운동과 경향을 탐지할 수 있다고, 우주들에서 오래 전부터 배웠다.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존자**가, **낙원 신격**의 유한한 반영으로서, 외부 공간으로 영원히 진보하는 데 관여한다고 믿고자 하지만; 외부 공간의 세 **절대자**의 잠재성이 제한된 것으로서, 이 **지존하신 분**은 **낙원**과 일치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 움직임은, 현재 조적대 있는 우주들에서 생기는 기본 활동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7. 지존자의 본성

지존 신격 안에서 **아버지_자존자**는, 무한한 지위, 영원한 존재, 그리고 절대 본성에 내재하는 한계로부터 비교적 완벽한 해방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지존자 하나님**은, 우주의 기능의 체험적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모든 실존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돼 오셨다. 유한한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서, 또한 체험할 필요성도 받아들여지게 되며; **전능자**는 영원으로부터 해방을 성취하면서, 시간이라는 장벽에 부딪치시며; **지존자**는 오직 부분적인 실존과 완성되지 못한 본성의 결과로, 성장과 발전을 겪으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임이 틀림없는데, 그 계획은, 유한한 진보를 노력에, 피조물의 성취를 인내에, 인격의 발전을 신앙에 기초했다. **지존자**의 체험_진화를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유한한 피조물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으며, 체험적 진보를 통해서 언

associates are reflective of the outward, diverging motion of the Supreme, while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indicative of the inward, converging trend of Supremacy.

115:6.6 (1265.7) Always is the finite Deity seeking for dual correlation, inward toward Paradise and the Deities thereof and outward toward infinity and the Absolutes therein. The mighty eruption of the Paradise-creative divinity personalizing in the Creator Sons and powerizing in the power controllers, signifies the vast outsurge of Supremacy into the domains of potentiality, while the endless procession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witnesses the mighty insurge of Supremacy toward unity with Paradise Deity.

115:6.7 (1265.8) Human beings have learned that the motion of the invisible may sometimes be discerned by observing its effects on the visible; and we in the universes have long since learned to detect the movements and trends of Supremacy by observing the repercussions of such evolutions in the personalities and patterns of the grand universe.

115:6.8 (1266.1) Though we are not sure, we believe that, as a finite reflection of Paradise Deity, the Supreme is engaged in an eternal progression into outer space; but as a qual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 potentials of outer space, this Supreme Being is forever seeking for Paradise coherence. And these dual motions seem to account for most of the basic activities in the presently organized universes.

7. THE NATURE OF THE SUPREME

115:7.1 (1266.2) In the Deity of the Supreme the Father-I AM has achieved relatively complete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inherent in infinity of status, eternity of being, and absoluteness of nature. But God the Supreme has been freed from all existential limitations only by having become subject to experiential qualifications of universal function. In attaining capacity for experience, the finite God also becomes subject to the necessity therefor; in achieving liberation from eternity, the Almighty encounters the barriers of time; and the Supreme could only know growth and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of partiality of existence and incompleteness of nature, nonabsoluteness of being.

115:7.2 (1266.3) All this must be according to the Father's plan, which has predicated finite progress upon effort, creature achievement upon perseveranc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upon faith. By thus ordaining the experience-evolution of the Supreme, the Father has made it possible for

젠가 **지존성**이라는 신성{神性}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일곱 **절대자**의 무조건적 가치를 제외하고, **지존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를 포함해서, 모든 실체는 상대적이다. **지존성**이 있다는 사실은, **낙원**의 동력, **아들**의 인격, 및 **공동자**의 행위에 근거하지만, **지존자**의 성장은, **신격 절대자**, **무조건 절대자**, 및 **우주 절대자**와 관련된다. 그리고 합성하고 통합하는 이 **신격**은--곧 **지존자 하나님**은--**제1 근원 및 중심**이신 **낙원 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본성을 무한히 통일함으로써, 광우주 전체에 드리워진 유한한 그림자가 의인화{擬人化}된 분이다.

삼극체들이 유한 수준에서 직접 작용하는 범위까지, 그 삼극체들은 **지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지존자**는, **실재 절대자**와 **잠재 절대자**의 본성에 부여한 유한한 제한들이 **신격**에 집중되고 시공우주에 합쳐진 분이다.

낙원 삼위일체는 절대로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며; **일곱 으뜸 영**은 **삼위일체**에게 명백히 불가피하며; **지존자**의 능력_정신_영_인격자가 실현되는 것은 진화적으로 불가피함에 틀림없다.

지존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무한 속에서 불가피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상대성 수준에서는 불가피한 듯하다. 그는 진화 체험을 집중시키고 요약하고 포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그의 **신격** 본성 안에서 이 양식의 실체 감지 결과를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말**의 출현, 즉 **궁극자 하나님**의 초월_체험과 초월_유한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근원, 역할, 및 운명, 즉:근원이 되는 **삼위일체**와, 활동하는 우주와, 그리고 직접 닥치는 운명인 **궁극 삼위일체**와 갖는 관계,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존하신 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

인격있는 **아들**의 신성한 영성{靈性}과 **낙원** 원형의 불변하는 에너지를, **공동 행위자**의 정신이 결합시키고, **신격 절대자**의 활성화와 **무조건 절대자**의 반응을 **우주 절대자**의 현존이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존자**는, 진화 체험을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한한 존재와 유한절대 존재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런 통일성은, **최초의 아버지 원인** 및 만물과 모든 존재의 **근원 원형**, 이 두 분의 원래 통일성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작용함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유란시아**에 잠시 머문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finite creatures to exist in the universes and, by experiential progression, sometime to attain the divinity of Supremacy.

115:7.3 (1266.4) Including the Supreme and even the Ultimate, all reality, excepting the unqualified values of the seven Absolutes, is relative. The fact of Supremacy is predicated on Paradise power, Son personality, and Conjoint action, but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involved in the Deity Absolute,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Universal Absolute. And this synthesizing and unifying Deity — God the Supreme —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finite shadow cast athwart the grand universe by the infinite unity of the unsearchable nature of the Paradise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7.4 (1266.5) To the extent that the triodities are directly operative on the finite level, they impinge upon the Supreme, who is the Deity focalization and cosmic summation of the finite qualifications of the natures of the Absolute Actual and the Absolute Potential.

115:7.5 (1266.6) The Paradise Trinity is considered to be the absolute inevitability;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apparently Trinity inevitabilities; the power-mind-spirit-personalit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must be the evolutionary inevitability.

115:7.6 (1266.7) God the Suprem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inevitable in unqualified infinity, but he seems to be on all relativity levels. He is the indispensable focalizer, summarizer, and encompasser of evolutionary experience, effectively unifying the results of this mode of reality perception in his Deity nature. And all this he appears to do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appearance of the *inevitable eventuation*, the superexperience and superfinite manifestation of God the Ultimate.

115:7.7 (1267.1) The Supreme Being cannot be fully appreciat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source, function, and destiny: relationship to the originating Trinity, the universe of activity, and the Trinity Ultimate of immediate destiny.

115:7.8 (1267.2) By the process of summing evolutionary experience the Supreme connects the finite with the absonite, even as the mind of the Conjoint Actor integrates the divine spirituality of the personal Son with the immutable energies of the Paradise pattern, and as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unifies Deity activation with the Unqualified reactivity. And this unity must be a revelation of the undetected working of the original unity of the First Father-Cause and Source-Pattern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115:7.9 (1267.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116편. 전능한 지존자

⇨ 115

유란시아 책

117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6편
전능한 지존자

섹션

소개

1. 지존자 정신
2. 전능자와 칠중 하나님
3. 전능자와 낙원 신격
4. 전능자와 최상급 창조주
5. 전능자와 칠중 통제관
6. 영의 지배
7. 살아있는 유기체인 광우주

소개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들이--곧 직속 감독자들이-- 신성한 동시에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이, 진화하는 비{非}절대 **신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모순은, 이제 더 이상 난해한 종교적 역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 신앙은 더 이상,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한 불행한 희생자들에게 금욕주의적 포기를 권장하는 데만 쓰이면서, 운이 좋은 자의 사회적 자만심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

절묘하게 완전한 **하보나** 구체들을 바라볼 때, 완전하고 무한하며 절대적인 **창조주**가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이성적인 동시에 논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성과 논리는, **유란시아**의 혼란, 결함, 및 불공정함을 볼 때, 절대적이지 못하고 무한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치 않은 **창조주**들이 너희 세계를 만들고 관리돼 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어떤 정직한 존재에게든지 강요할 것이다.

체험적 성장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동업관계

PAPER 116

THE ALMIGHTY SUPREM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upreme Mind
2. The Almighty and God the Sevenfold
3. The Almighty and Paradise Deity
4. The Almighty and the Supreme Creators
5. The Almighty and the Sevenfold Controllers
6. Spirit Dominance
7. The Living Organism of the Grand Universe

INTRODUCTION

116:0.1 (1268.1) IF MAN recognized that his Creators — his immediate supervisors — while being divine were also finite, and that the God of time and space was an evolving and nonabsolute Deity, then would the inconsistencies of temporal inequalities cease to be profound religious paradoxes. No longer would religious faith be prostituted to the promotion of social smugness in the fortunate while serving only to encourage stoical resignation in the unfortunate victims of social deprivation.

116:0.2 (1268.2) When viewing the exquisitely perfect spheres of Havona, it is both reasonable and logical to believe they were made by a perfect, infinite, and absolute Creator. But that same reason and logic would compel any honest being, when viewing the turmoil, imperfections, and inequities of Urantia, to conclude that your world had been made by, and was being managed by, Creators who were subabsolute, preinfinite, and other than perfect.

116:0.3 (1268.3) Experiential growth implies creature-

를--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한다. 성장은 체험하는 **신격**의 증표다. **하보나**는 성장하지 않았으며; **하보나**는 존재하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 그 근원이신 영원한 **하나님**들처럼 실존적이다. 그러나 성장은 광우주의 특징을 나타낸다.

전능한 지존자는 권능과 인격을 소유한, 살아 있고 진화하는 **신격**이다. 그의 현재 영토인 광우주 역시, 권능과 인격이 성장하는 영역이다. 그의 종착점은 완전성이지만, 그의 현재 체험은, 성장하는 요소와 불완전한 상태의 요소를 포함한다.

지존하신 분은, 1차로 중앙우주에서 영 인격체로서 활동하며; 2차로 광우주에서 권능을 가진 인격체인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신다. 총괄 우주에서 **지존자**의 3차 활동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오직 알려지지 않은 잠재 정신으로서 존재한다. **지존하신 분**의 이런 셋째 발전이 무엇을 드러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더러는, 연방우주들이 빛과 생명의 단계에 정착할 때, **지존자**가 전능하고 체험을 겪은 광우주 주권자로서 **우버사**에서 활동하고, 한편 외부 우주들에서 초월전능자로서 권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러는, **지존성**의 셋째 단계는 셋째 수준의 **신격** 현시를 수반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1. 지존자 정신

진화하는 각 피조물 인격이 겪는 체험은, **전능한 지존자**가 체험하는 한 국면이다. 연방우주의 각 물리적 구획을 총명하게 정복하는 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증대하는 통제력의 일부분이다. 권능과 인격의 창조적 합성은, **지존자 정신**의 창조적 충동의 일부분이며, **지존하신 분** 안에서 진화로 성장하는 통일성의 바로 그 본질이다.

지존성의 권능과 인격 속성을 통합하는 것은, **지존자 정신**의 작용이며; **전능한 지존자**의 진화가 완성되면, --신성한 속성들의 어떤 느슨하게 협조된 연합체가 아니라-- 통합되고 인격있는 한 **신격**을 낳게 될 것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지존자**에게서 분리된 **전능성**, **전능자**에게서 분리된 **지존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진화 시대 내내, **지존자**의 물리적 잠재성은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에게 부여돼 있으며, 정신의 잠재성은 **일곱 으뜸 영**에게 위임돼 있다. **무한한 정신**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며; 시공 우주 정신은 **일곱 으뜸 영**이 베푸는 사역이며; **지존자 정신**은 광우주의 조화 속에서 실현돼가는 과정

Creator partnership — God and man in association. Growth is the earmark of experiential Deity: Havona did not grow; Havona is and always has been; it is existential like the everlasting Gods who are its source. But growth characterizes the grand universe.

116:0.4 (1268.4) The Almighty Supreme is a living and evolving Deity of power and personality. His present domain, the grand universe, is also a growing realm of power and personality. His destiny is perfection, but his present experience encompasses the elements of growth and incomplete status.

116:0.5 (1268.5) The Supreme Being functions primarily in the central universe as a spirit personality; secondarily in the grand universe as God the Almighty, a personality of power. The tertiary function of the Supreme in the master universe is now latent, existing only as an unknown mind potential. No one knows just what this third development of the Supreme Being will disclose. Some believe that, when the superuniverse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Supreme will become functional from Uversa as the almighty and experiential sovereign of the grand universe while expanding in power as the supernalmighty of the outer universes. Others speculate that the third stage of Supremacy will involve the third level of Deity manifestation. But none of us really know.

1. THE SUPREME MIND

116:1.1 (1268.6) The experience of every evolving creature personality is a phase of the experience of the Almighty Supreme. The intelligent subjugation of every physical segment of the superuniverses is a part of the growing control of the Almighty Supreme. The creative synthesis of power and personality is a part of the creative urge of the Supreme Mind and is the very essence of the evolutionary growth of unity in the Supreme Being.

116:1.2 (1269.1) The union of the power and personality attributes of Supremacy is the function of Supreme Mind; and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Almighty Supreme will result in one unified and personal Deity — not in any loosely co-ordinated association of divine attributes.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there will be no Almighty apart from the Supreme, no Supreme apart from the Almighty.

116:1.3 (1269.2) Throughout the evolutionary ages the physical power potential of the Supreme is vested in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mind potential repose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Infinite Mind is the func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cosmic mind, the ministry of the

중에 있고, **칠중 하나님**의 계시 및 달성과 기능적으로 연합해 있다.

시_공간 정신, 즉 시공우주 정신은, 일곱 연방 우주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만, 어떤 알려지지 않은 연합 기법에 따라, **지존하신 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광우주에 대한 **전능자**의 전면 통제는, 순전히 물리적이거나 순전히 영적이지는 않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그 전면통제는 주로 물질적이고 영적이지만, **지존자**의 지적인 동시에 영적인 현상들 역시 있다.

이런 진화하는 **신격**의 어떤 다른 면들보다도, 우리는 **지존성**의 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적게 안다. 분명히 그 정신은 광우주에 두루 활동하고 있으며, 방대한 범위에 속하는 총괄우주에서 활동하는 잠재적 운명을 가졌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다: 외형(外形)의 성장은 완성될지 모르고, 영은 완전하게 발달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결코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정신은 끝없이 진보하는 체험적 기법이다. **지존자**는 체험하는 **신격**이며, 따라서 정신의 달성을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2. 전능자와 칠중 하나님

전능자가 우주의 권능으로서 현존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진화하는 연방우주들의 높은 창조자와 통제관들이 시공우주 행동 무대에 출현함과 동시에 일어난다.

지존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과 인격 속성들을 **낙원 삼위일체**로부터 획득하지만, **창조주 아들들**, **태고 항존자들**, 및 **으뜸 영들**의 행위에서 권능을 실현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집단 행위는,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전능한 주권자로서, 그의 확장하는 권능의 근원이다.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은 무조건적 **낙원 신격**을 납득할 수 없다. 영원성과 무한성은 시_공간 피조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신격 실체를 의미한다. 신격의 무한성과 주권의 절대성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 본래부터 있으며, **삼위일체**는 필사적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는 실체다. 시_공간 피조물은, 우주 관계를 파악하고 신성의 의미 있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원, 관련성, 및 운명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낙원 신격**은 **낙원** 바깥에서 일어나는 신성의 인격화를 약화시키고 달리 제한하는데, 그렇게 해서 **최상급 창조주들**과 그 동역자들이 실존하게 되며, 이들은 여러 진화 세계에서 증여 **아들들**이 땅에서 사는 동

Seven Master Spirits; the Supreme Mind is in process of actualizing in the co-ordination of the grand universe and in functional association with the revelation and attainment of God the Sevenfold.

116:1.4 (1269.3) The time-space mind, the cosmic mind, is differently functioning in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it is co-ordinated by some unknown associative technique in the Supreme Being. The Almighty overcontrol of the grand universe is not exclusively physical and spiritual. In the seven superuniverses it is primarily material and spiritual, but there are also present phenomena of the Supreme which are both intellectual and spiritual.

116:1.5 (1269.4) We really know less about the mind of Supremacy than about any other aspect of this evolving Deity. It is unquestionably active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and is believed to have a potential destiny of master universe function which is of vast extent. But this we do know: Whereas physique may attain completed growth, and whereas spirit may achieve perfection of development, mind never ceases to progress — it is the experiential technique of endless progress. The Supreme is an experiential Deity and therefore never achieves completion of mind attainment.

2. THE ALMIGHTY AND GOD THE SEVENFOLD

116:2.1 (1269.5) The appearance of the universe power presence of the Almighty is concomitant with the appearance on the stage of cosmic action of the high creators and controllers of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116:2.2 (1269.6) God the Supreme derives his spirit and personality attributes from the Paradise Trinity, but he is power-actualizing in the doings of the Creator Sons,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Master Spirits, whose collective acts are the source of his growing power as almighty sovereign to an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116:2.3 (1269.7) Unqualified Paradise Deity is incomprehensible to the evolving creatures of time and space. Eternity and infinity connote a level of deity reality which time-space creatures cannot comprehend. Infinity of deity and absoluteness of sovereignty are inherent in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Trinity is a reality which lies somewhat beyond the understanding of mortal man. Time-space creatures must have origins, relativities, and destinies in order to grasp universe relationship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values of divinity. Therefore does Paradise Deity attenuate and otherwise qualify the extra-Paradise

안에 생명의 빛의 가장 멀고도 아름다운 표현을 찾을 때까지, 그 **낙원** 근원으로부터 그 빛을 멀리 멀리 꾸준히 가져간다.

그리고 이것이 **칠중 하나님**의 기원인데, 그의 연속된 수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사적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1. **창조주 아들들** (그리고 **창조적 영들**)
2. **태고 항존자들**
3. **일곱 으뜸 영**
4. **지존하신 분**.
5. **공동 행위자**.
6. **영원한 아들**.
7. **만유의 아버지**.

처음 세 수준은 **최상급 창조주들**이며, 마지막 세 수준은 **낙원 신격**들이다. **지존자**는, **낙원 삼위 일체**의 체험적 영 인격화로서, 그리고 **낙원 신격**들의 창조자 자녀들이 소유한, 진화하는 전능 {全能}한 권능의 체험적 중심으로서, 언제나 개입한다. **지존하신 분**은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주 시대를 위해서, **신격**이 최대한 계시된 것이다.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의 집단 행위를 체험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낙원 신격** 수준과 동등 하리라고, 필사자가 논리를 따지는 기법으로 추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낙원 신격**은 실존적 **신격**이다. **최상급 창조주들**은, 권능과 인격이 신 성하게 통일된 가운데, **체험적 신격**의 새로운 잠재성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체험적 기원을 갖는 이 권능 잠재성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체험적 **신격**과--곧 **지존하신 분**과--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통합됨을 발견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낙원 삼위일체**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런 연방우주 **창조주들** 전체 또는 어느 누구도 아는데, 그 **창조주들**의 기능적 활동이,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하는 전능한 권능을 실제로 통합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되지만, 오직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의 조정된 기능을 통해서만, 권능을 가진 인격체로서,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표현된다. **공동 행위자**가 영원 속에서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서 삼시간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전능한 지존자**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사실화되고 있다.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에 있는 이 존재들은, **전능한 지존자**가 가진 권능의 바로 그 본성 및 근원이며;

personalizations of divinity,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the Supreme Creators and their associates, who ever carry the light of life farther and farther from its Paradise source until it finds its most distant and beautiful expression in the earth lives of the bestowal Sons on the evolutionary worlds.

116:2.4 (1270.1) And this is the origin of God the Sevenfold, whose successive levels are encountered by mortal man in the following order:

116:2.5 (1270.2) 1. The Creator Sons (and Creative Spirits).

116:2.6 (1270.3) 2. The Ancients of Days.

116:2.7 (1270.4) 3. The Seven Master Spirits.

116:2.8 (1270.5) 4. The Supreme Being.

116:2.9 (1270.6) 5. The Conjoint Actor.

116:2.10 (1270.7) 6. The Eternal Son.

116:2.11 (1270.8) 7. The Universal Father.

116:2.12 (1270.9) The first three levels are the Supreme Creators; the last three levels are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ever intervenes as the experiential spirit personaliz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as the experiential focus of the evolutionary almighty power of the creator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Being is the maximum revelation of Deity to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116:2.13 (1270.10) By the technique of mortal logic it might be inferred that the experiential reunification of the collective act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would equvalate to the level of Paradise Deity, but such is not the case.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Deity. The Supreme Creators, in their divine unity of power and personality, are constitutive and expressive of a new power potential of *experiential* Deity. And this power potential of experiential origin finds inevitable and inescapable union with the experiential Deity of Trinity origin — the Supreme Being.

116:2.14 (1270.11) God the Supreme is not the Paradise Trinity, neither is he any one or all of those superuniverse Creators whose functional activities actually synthesize his evolving almighty power. God the Supreme, while of origin in the Trinity, becomes manifest to evolutionary creatures as a personality of power only through the co-ordinated function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The Almighty Supreme is now factualizing in time and space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even as in eternity the Conjoint Actor flashed into being by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se being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are the very nature and

따라서 그들은 그의 경영 행위를 항상 따라가고 유지해야 한다.

source of the power of the Almighty Supreme; therefore must they ever accompany and sustain his administrative acts.

3. 전능자와 낙원 신격

낙원 신격들은 광우주에서 두루, 자신들의 인력 회로 속에서 직접 활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행자 및 다른 형태화를 통해서 활동한다:

1.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 집중. 에너지와 영의 유한한 영역들은, **공동 행위자**의 정신 현존으로 인해 글자 그대로 결합된다. 이것은,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으로부터,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을 거쳐서, 광우주 안의 **으뜸 영**들에 이르기까지, 참말이다. 다양한 이 지성 초점들로부터 발산되는 정신 회로들은, 피조물이 선택하는 시공우주 경기장을 상징한다. 정신은, 피조물과 **창조주**들이 아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실체이며; 물질과 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다. **제3 근원 및 중심**이 정신을 증여하는 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와 진화하는 **전능자**가 체험으로 얻은 권능을 하나로 만든다.

2. **제2 근원 및 중심**의 인격 계시. **공동 행위자**의 정신 현존들은, 신성의 영과 에너지 원형을 통합시킨다. **영원한 아들**과 **낙원 아들**들이 증여로 육신화(肉身化)하는 것은, **창조주**의 신성한 본성을 피조물의 진화하는 본성과 통합시키는데, 실제로 융합한다. **지존자**는 지음 받은 자인 동시에 창조자이며; 그가 그런 존재일 가능성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급이거나 그에게 종속되는 **아들**들의 증여 행위에서 드러난다. 아들신분 중에서 증여 계층인 **미가엘**과 **아보날**은, 진화 세계들에서 실제로 피조 생애를 살아봄으로써 그들의 것이 돼 버린, 진정한 피조물 본성과 함께 그들의 신성한 본성을 실제로 증대시킨다. 신성(神性)이 인성(人性)처럼 될 때, 인성이 신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관계에 내재한다.

3. **제1 근원 및 중심**의 내주하는 현존. 정신은 영 원인을 에너지 반응과 통합하며; 증여 사역은 신성(神性)의 하강과 피조물의 상승을 통합하며; **만유의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斷片)들은, 진화하는 피조물을 **낙원**에 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통합시킨다. 수많은 계층의 인격체에게 내주하는 **아버지**의 그런 현존이 많이 있으며, 필사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단편이 **사고 조율사**다. **신비 관찰자**들과 인간의 관계는, **낙원 삼위 일체**와 **지존하신 분**의 관계와 같다. **조율사**는 절대 토대이며, 절대 토대 위에서 자유 의지의 선택은 영원성취자 본성, 즉 사람의 경우에는 완결성취자 본성, **지존자 하나님**의 경우에는 **신격** 본성이라는 신성한 실체가 진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3. THE ALMIGHTY AND PARADISE DEITY

116:3.1 (1270.12) The Paradise Deities not only act directly in their gravity circuit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but they also function through their various agencies and other manifestations, such as:

116:3.2 (1270.13) 1. *The mind focalization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finite domains of energy and spirit are literally held together by the mind presences of the Conjoint Actor. This is true from the Creative Spirit in a local universe through the Reflective Spirits of a superuniverse to the Master Spirits in the grand universe. The mind circuits emanating from these varied intelligence focuses represent the cosmic arena of creature choice. Mind is the flexible reality which creatures and Creators can so readily manipulate; it is the vital link connecting matter and spirit. The mind bestowal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unifies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with the experiential power of the evolutionary Almighty.

116:3.3 (1271.1) 2. *The personality revelations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mind presences of the Conjoint Actor unify the spirit of divinity with the pattern of energy. The bestowal incarnations of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unify, actually fuse, the divine nature of a Creator with the evolving nature of a creature. The Supreme is both creature and creator; the possibility of his being such is revealed in the bestowal actions of the Eternal Son and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ns. The bestowal orders of sonship, the Michaels and the Avonals, actually augment their divine natures with bona fide creature natures which have become theirs by the living of the actual creature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When divinity becomes like humanity, inherent in this relationship is the possibility that humanity can become divine.

116:3.4 (1271.2) 3. *The indwelling presenc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Mind unifies spirit causations with energy reactions; bestowal ministry unifies divinity descensions with creature ascensions; and the indwelling fragments of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unify the evolving creatures with God on Paradise. There are many such presences of the Father which indwell numerous orders of personalities, and in mortal man these divine fragments of God are the Thought Adjusters. The Mystery Monitors are to human beings what the Paradise Trinity is to the Supreme Being. The Adjusters are absolute foundations, and upon absolute foundations freewill choice can cause to be evolved the divine

아들신분 중에서 **낙원** 계층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하는 것은, 이 신성한 **아들들**이 우주 피조물의 실제 본성을 획득함으로써 **아들들**의 인격을 풍성하게 하며, 한편 그런 증여는, 신성을 달성하는, **낙원**으로 가는 통로를 바로 그 피조물에게 어김없이 드러낸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조을사**를 증여하는 것은, 자발적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인격을 **만유의 아버지** 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유한한 우주들에서 이 모든 관계에 두루, **공동 행위자**는 정신이 베푸는 사역의 상존{常存}하는 근원이며, 그 덕택으로 이런 활동이 발생한다.

공간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에서 시간세계의 진화가 펼쳐짐에 따라서, 그리고 **지존자** 인격의 모든 진화 결과가 마침내 발생하는 동안, 이 방법 및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낙원 신격**들이 그 진화에 참여한다.

4. 전능자와 최상급 창조주

지존자 총체의 통일은, 유한한 부분들의 점진적 통합에 의존하며; **지존자**의 현실화는 지존성의 요소들--곧 우주들의 창조자, 피조물, 지성체, 및 에너지--의 바로 이런 통합의 결과이고 그 산물이다.

시간이 전개되는 것을 **지존성**의 주권이 쥐고 있는 시대에는, **지존자**의 전능{全能}한 권능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 행동에 의존하는 반면, **지존하신 분**과 **공동 행위자** 및 그의 1차 인격체인 **일곱 으뜸 영**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 행위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진화하는 **신격**의 미완성을 보정하며, **지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이런 밀접한 관계는 어느 정도 모든 **으뜸 영**이 공유하지만, 특히 **지존자**를 대변하는 7_번 **으뜸 영**이 그렇다. 이 **으뜸 영**은 **지존자**를 안다--즉 **지존자**와 친히 접촉한다.

연방우주 창조 기획이 입안되던 초기에, **으뜸 영**들은, **반사하는 영** 49명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일에 조상인 **삼위일체**와 연합했으며, 동시에 **지존하신 분**은, **낙원 삼위일체**의, 그리고 **낙원 신격**의 창조하는 자녀들의 공동 활동을 완결시키는 자로서, 독창적으로 작용했다. **위엄자**가 나타나서, 그 후로 항상 **지존자 정신**의 시공우주 현존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으며, 한편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

reality of an eternaliter nature, finaliter nature in the case of man, Deity nature in God the Supreme.

116:3.5 (1271.3) The creature bestowals of the Paradise orders of sonship enable these divine Sons to enrich their personalities by the acquisition of the actual nature of universe creatures, while such bestowals unfailingly reveal to the creatures themselves the Paradise path of divinity attainment. The Adjuster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enable him to draw the personalities of the volitional will creatures to himself. And throughout all these relationships in the finite universes the Conjoint Actor is the ever-present source of the mind ministry by virtue of which these activities take place.

116:3.6 (1271.4) In these and many other ways do the Paradise Deities participate in the evolutions of time as they unfold on the circling planets of space, and as they culminate in the emergence of the Supreme personality consequence of all evolution.

4. THE ALMIGHTY AND THE SUPREME CREATORS

116:4.1 (1271.5) The unity of the Supreme Whole is dependent on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the finite parts;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is resultant from, and productive of, these very unifications of the factors of supremacy — the creators, creatures, intelligences, and energies of the universes.

116:4.2 (1272.1) During those ages in which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is undergoing its time development,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is dependent on the divinity acts of God the Sevenfold, while there seems to be a particular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Being and the Conjoint Actor together with his primary personalities,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Infinite Spirit as the Conjoint Actor functions in many ways which compensate the incompleteness of evolutionary Deity and sustains very close relations to the Supreme. This closeness of relationship is shared in measure by all of the Master Spirits but especially by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speaks for the Supreme. This Master Spirit knows — is in personal contact with — the Supreme.

116:4.3 (1272.2) Early in the projection of the superuniverse scheme of creation, the Master Spirits joined with the ancestral Trinity in the cocreation of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nd concomitantly the Supreme Being functioned creatively as the culminator of the conjoined act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creative children of Paradise Deity. Majeston appeared and ever since

신이 광범하게 사역하도록 근원_중심으로서 존속한다.

그러나 **으뜸 영**들은 **반사하는 영**들을 계속 감독한다. **일곱째 으뜸 영**은, (중앙우주로부터 **오른 본토**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동안) **우버사**에 위치한 일곱 **반사하는 영**과 친히 접촉한다(그리고 그들을 전면통제한다). 연방우주_사이 및 연방우주_내부의 통제와 경영에서, 그는 각 연방우주 수도 {首都}에 위치한 자신과 같은 유형의 **반사하는 영**들과, 반사 작용으로 접촉을 이룬다.

이 **으뜸 영**들은, **지존성**의 주권을 지지하고 증대시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지존자**의 창조적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 대개, **으뜸 영**들이 집단으로 창조한 것들은 유사{類似}_물질 계층에 (곧 동력 지휘자 및 기타에) 속하는 반면, 개별로 창조한 것들은 영적 계층에 (곧 최고스라빔 및 기타에) 속한다. 그러나 **으뜸 영**들이 **지존하신 분**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일곱 궤도 영**을 집단으로 산출했을 때, 이 창조 활동에서 나온 자녀는, 물질이거나 유사{類似}_물질이 아니라, 영적 자녀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연방우주의 **으뜸 영**들의 경우와 같이, 이 연방창조물들에 대한 삼중 통치자들--곧 **태고 항존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공간에서 **삼위일체**의 응보와_심판이 이렇게 의인화{擬人化}된 것들은, **지존자**의 전능한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현장의 지레받침인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주권의 진화를 위한 칠중 초점 역할을 한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이 주권자들은, **낙원**과 진화하는 세계들 사이에 있는 유리한 중간 지점으로부터, 양쪽 길을 다 보고, 양쪽 길을 다 알며, 양쪽 길을 조화시킨다.

그러나 지방우주는 진짜 실험실인데, 정신의 실험, 성단{星團} 탐험, 신성의 전개, 및 인격의 진보가 그 속에서 해결되고, 시공우주에서 합산할 때 이것들은, 체험 속에서, 그리고 체험으로, **지존자**가 신격의 진화를 성취하는 실제 기초를 이룬다.

지방우주에서는 **창조주**도 진화하는데:**공동 행위자**의 현존은, 살아있는 권능의 초점으로부터 **우주 어머니 영**의 신성한 인격 상태로 진화하며;**창조주 아들**은, 실존적 **낙원** 신성의 본성으로부터 최상의 주권을 얻는 체험적 본성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지방우주는, 참된 진화의 출발지점, 즉 예정된 바와 같이, 스스로 공동창조자가 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부여받은, 진실한 불완전 인격체들이 태어나는 장소다.

has focalized the cosmic presence of the Supreme Mind, while the Master Spirits continue as source-centers for the far-flung ministry of the cosmic mind.

116:4.4 (1272.3) But the Master Spirits continue in supervision of the Reflective Spirits. The Seventh Master Spirit is (in his overall supervision of Orvonton from the central universe) in personal contact with (and has overcontrol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located on Uversa. In his inter- and intrasuperuniverse controls and administrations he is in reflective contact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his own type located on each superuniverse capital.

116:4.5 (1272.4) These Master Spirits are not only the supporters and augmenters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but they are in turn affected by the creative purposes of the Supreme. Ordinarily, the collective creations of the Master Spirits are of the quasi-material order (power directors, etc.), while their individual creations are of the spiritual order (supernaphim, etc.). But when the Master Spirits collectively produced the Seven Circuit Spirits in response to the will and purpose of the Supreme Being, it is to be noted that the offspring of this creative act are spiritual, not material or quasi-material.

116:4.6 (1272.5) And as it is with the Master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so is it with the triune rulers of these supercreations — the Ancients of Days. These personifications of Trinity justice-judgment in time and space are the field fulcrums for the mobilizing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serving as the sevenfold focal points for the evolution of trinitarian sovereignty in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From their vantage point midway between Paradise and the evolving worlds, these Trinity-origin sovereigns see both ways, know both ways, and co-ordinate both ways.

116:4.7 (1272.6) But the local universes are the real laboratories in which are worked out the mind experiments, galactic adventures, divinity unfoldings, and personality progressions which, when cosmically totaled, constitute the actual foundation upon which the Supreme is achieving deity evolution in and by experience.

116:4.8 (1272.7) In the local universes even the Creators evolve: The presence of the Conjoint Actor evolves from a living power focus to the status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a Universe Mother Spirit; the Creator Son evolves from the nature of existential Paradise divinity to the experiential nature of supreme sovereignty. The local universes are the starting points of true evolution, the spawning grounds of bona fide imperfect personalities endowed with the freewill choice of becoming cocreators of themselves as they are to be.

진화하는 세계에 자신을 증여하는 **집정관 아들**들은, 물질적 인간 본성의 가장 높은 영적 가치와 체험적으로 통합하면서, 결국 **낙원** 신성을 나타내는 본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증여 및 기타 증여들을 통해서, **미가엘 창조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제 지방우주 자녀의 본성과 시공우주 관점을 획득한다. 그런 **으뜸 창조주 아들**들은 최상 이하 체험의 완성에 접근하며; 그들의 지방우주 주권이 관련된 **창조적 영**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될 때, 진화하는 광우주의 현재 잠재력 안에서, 지존성의 한계에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을, 증여 **아들**들이 드러낼 때, 그들은 신성에 도달하는 이 길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존자**의 현존을 통해서 **낙원 아버지** 인격체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진보하는 영원한 대로(大路)를 밝혀준다.

지방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큰 영적 상승을 체험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최고의 체험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인격체들을 위한 출발 지점이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지방우주들은, 하강(下降)하는 인격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체험을 마련해 주는데, 이들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이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의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무엇을, 이 방법으로 성취한다.

칠중 하나님이 마침내 **지존자**로 현실화 하는 동안에, 필사적 사람은 이 신성 집합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듯하다. **지존자**의 전능한 권능을 진화시키는 데 똑같이 필요한, 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은, 인간을 교화(敎化)시키기 위해서 제시되며, 따라서 필사적 사람에게 관련되는 **칠중 하나님**의 진화에서 작동하는 그 요소들에만 대체로 한정된다.

5. 전능자와 칠중 통제관

너희는 지금까지 **칠중 하나님**과 **지존하신 분**의 관계를 배웠으며, 이제는 그 **칠중 하나님**이 광우주의 창조자들뿐 아니라 통제관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광우주의 이 칠중 통제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총괄 물리 통제관들.
2. 최상급 동력 중심들.

116:4.9 (1273.1) The Magisterial Sons in their bestowals upon the evolutionary worlds eventually acquire natures expressive of Paradise divinity in experiential unification with the highest spiritual values of material human nature. And through these and other bestowals the Michael Creators likewise acquire the natures and cosmic viewpoints of their actual local universe children. Such Master Creator Sons approximate the completion of sub-supreme experience; and when their local universe sovereignty is enlarged to embrace the associated Creative Spirits, it may be said to approximate the limits of supremacy within the present potentials of the evolutionary grand universe.

116:4.10 (1273.2) When the bestowal Sons reveal new ways for man to find God, they are not creating these paths of divinity attainment; rather are they illuminating the everlasting highways of progression which lea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Supreme to the person of the Paradise Father.

116:4.11 (1273.3) The local universe is the starting place for those personalities who are farthest from God, and who can therefore experience the greatest degree of spiritual ascent in the universe, can achieve the maximum of experiential participation in the cocreation of themselves. These same local universes likewise provide the greatest possible depth of experience for the descending personalities, who thereby achieve something which is to them just as meaningful as the Paradise ascent is to an evolving creature.

116:4.12 (1273.4) Mortal man appears to be necessary to the full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as this divinity grouping culminates in the actualizing Supreme. There are many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equally necessary to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but this portrayal is presented for the edification of human beings, hence is largely limited to those factors operating in the evolution of God the Sevenfold which are related to mortal man.

5. THE ALMIGHTY AND THE SEVENFOLD CONTROLLERS

116:5.1 (1273.5) You have been instructed in the relationship of God the Sevenfold to the Supreme Being, and you should now recognize that the Sevenfold encompasses the controllers as well as the cre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se sevenfold 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embrace the following:

116:5.2 (1273.6) 1.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116:5.3 (1273.7) 2. The Supreme Power Centers.

116:5.4 (1273.8)

3.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

116:5.4 (1273.8) 3. The Supreme Power Directors.

4. 전능한 지존자.

116:5.5 (1273.9) 4. The Almighty Supreme.

5. 행동의 하나님 --무한한 영.

116:5.6 (1273.10) 5. The God of Action — the Infinite Spirit.

6. 낙원 섬.

116:5.7 (1273.11) 6. The Isle of Paradise.

7. 낙원의 근원 --만유의 아버지.

116:5.8 (1273.12) 7. The Source of Paradise — the Universal Father.

이 일곱 집단은, 기능적으로 **칠중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신격** 연합에서 물리적_통제 수준을 구성한다.

116:5.9 (1273.13) These seven groups are functionally inseparable from God the Sevenfold and constitute the physical-control level of this Deity association.

일곱 으뜸 영이 뭉쳐서 집단으로 창조하는 첫 행위에 들어갈 때, 연방우주 의미에서 에너지와 영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곧 **영원한 아들과 낙원 섬**의 공동 현존에서 파생하는 것을) 상징했다. 이 사건은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의 출현을 입증한다. 그와 동시에, 동력 지휘자가 감독하는 물리적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으뜸 영**들의 영적 회로들이 구별됐으며, 물질과 영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요소로서, 시공우주 정신이 즉각 등장했다.

116:5.10 (1273.14) The bifurcation of energy and spirit (stemming from the conjoin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Paradise Isle) was symbolized in the superuniverse sense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unitedly engaged in their first act of collective creation. This episode witnessed the appearance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Concomitant therewith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 Master Spirits contras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physical activities of power director supervision, and immediately did the cosmic mind appear as a new factor co-ordinating matter and spirit.

전능한 지존자는 광우주의 물리적 동력에 대한 전면통제관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우주 시대에 잠재적인 이 물리적 동력은, **일곱 최상급 동력 지휘자** 안에 중심을 두는 듯한데, 이들은 동력 중심지들의 고정된 위치를 통해서, 그리고 물리 통제관들의 움직이는 현존을 통해서 작동한다.

116:5.11 (1274.1) The Almighty Supreme is evolving as the overcontroller of the physical power of the grand univers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potential of physical power appears to be centered in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who operate through the fixed locations of the power centers and through the mobile presence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시간이 있는 우주들은 완전치 않으며, 그것이 그것들의 운명이다. 완전성을 향한 투쟁은, 지적 수준 및 영적 수준뿐 아니라,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물리적 수준과도 관계된다.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그 우주들이 물리적 안정을 달성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질의 균형을 마침내 달성하는 것은, **전능자**의 물리적 통제가 진화를 마쳤음을 뜻한다고 추측된다.

116:5.12 (1274.2) The time universes are not perfect; that is their destiny. The struggle for perfection pertains not only to the intellectual and the spiritual levels but also to the physical level of energy and mass. The settle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n light and life presupposes their attainment of physical stability. And it is conjectured that the final attainment of material equilibrium will signify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physical control of the Almighty.

우주가 조성되던 초기에는, **낙원 창조주**들도 우선적으로 물질의 균형에 관심을 갖는다. 지방우주의 원형은, 동력 중심들이 활동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 영**의 공간 현존 때문에 모습을 갖춘다. 그리고 지방우주를 조성하는 이 초기 시절 내내, **창조주 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 통제 속성을 나타내며, 지방우주가 대체로 균형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수도{首都} 행성을 떠나지 않는다.

116:5.13 (1274.3) In the early days of universe building even the Paradise Creator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material equilibrium. The pattern of a local universe takes shape not only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of the power centers but also because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Creative Spirit. And throughout these early epochs of local universe building the Creator Son exhibits a little-understood attribute of material control, and he does not leave his capital planet until the gross equilibrium of the local universe has been established.

요컨대, 모든 에너지는 정신에 반응하며, 물리 통제관들은, **낙원**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정신

116:5.14 (1274.4) In the final analysis, all energy responds to mind,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하나님의 자녀다. 동력 지휘자들의 지성은 물질을 통제하는 과제에 끊임없이 전념한다. 에너지의 관계 질량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투쟁은, 그들의 영적인 활동 영역인,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유한한 승리를 성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서 영 투쟁은, (인격있는) 정신이 중재함으로 물질을 영{靈}이 지배하는 진화와 상관이 있으며; 우주들의 물리적(곧 비인격적) 진화는, 시공우주 에너지를 영의 전면통제 아래에서 정신의 균형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광우주 전체의 모든 진화는, 에너지를 통제하는 정신, 그리고 영이 조정한 지능, 이 두 가지를 인격이 통합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지존자**의 전능한 권능이 완전히 나타남으로 드러날 것이다.

역동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서 어려움은, 성장하는 시공우주라는 사실에 내재한다. 물리적 창조의 확립된 회로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질량의 출현으로 계속 위태롭게 된다. 성장하는 우주는 안정되지 않은 우주이며; 따라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일곱 연방우주가 물질적으로 완성됨이 목격되기 전에는, 전체 시공우주의 어떤 부분도 참된 안정을 찾을 수 없다.

빛과 생명으로 안정된 우주에서는, 예견되지 못한 두드러지게 중요한 물리적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 물질 창조에 대하여 비교적 완전한 통제가 이뤄졌으며; 안정된 우주와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주적 동력 지휘자**들의 솜씨에 계속 도전한다. 그러나 광우주가 진화적 표현의 최고점에 접근함에 따라서, 이 문제들은 새로운 창조 활동의 감소와 함께 점차 사라질 것이다.

6. 영의 지배

진화하는 연방우주들에서는, 인격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에너지와 물질이 지배적인데, 인격체 안에서는,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靈}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투한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표는, 정신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고 정신과 영이 협조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창조적이고 통합하는 인격 현존 덕택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인격에 대한 관계에서, 물리 체계들은 종속되며; 정신 체계들은 조화를 이루게 되며; 영 체계들은 지휘권을 갖게 된다.

동력과 인격의 이 합동은, **지존자** 안에서, 그리고 **지존자**로서, 신격 수준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영{靈}의 지배가 실제로 진화하는 것은, 광우주

the children of the mind God, who is the activator of Paradise pattern. The intelligence of the power directors is unremittingly devoted to the task of bringing about material control. Their struggle for physical dominance over the relationships of energy and the motions of mass never ceases until they achieve finite victory over the energies and masses which constitute their perpetual domains of activity.

116:5.15 (1274.5) The spirit struggles of time and space have to do with the evolution of spirit dominance over matter by the mediation of (personal) mind; the physical (nonpersonal) evolution of the universes has to do with bringing cosmic energy into harmony with the equilibrium concepts of mind subject to the overcontrol of spirit. The total evolution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is a matter of the personality unification of the energy-controlling mind with the spirit-co-ordinated intellect and will be revealed in the full appearance of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116:5.16 (1274.6) The difficulty in arriving at a state of dynamic equilibrium is inherent in the fact of the growing cosmos. The established circuits of physical creation are being continually jeopardized by the appearance of new energy and new mass. A growing universe is an unsettled universe; hence no part of the cosmic whole can find real stability until the fullness of time witnesses the material comple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16:5.17 (1274.7) In the settled universes of light and life there are no unexpected physical events of major importance. Relatively complete control over the material creation has been achieved; still the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of the settled universes to the evolving universes continue to challenge the skill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But these problems will gradually vanish with the diminution of new creative activity as the grand universe approaches culmination of evolutionary expression.

6. SPIRIT DOMINANCE

116:6.1 (1275.1) In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energy-matter is dominant except in personality, where spirit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is struggling for the mastery. The goal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is the subjugation of energy-matter by mind, the co-ordination of mind with spirit, and all of this by virtue of the creative and unifying presence of personality. Thus, in relation to personality, do physical systems become subordinate; mind systems, co-ordinate; and spirit systems, directive.

116:6.2 (1275.2) This union of power and personality is expressive on deity levels in and as the Supreme. But the actual evolution of spirit dominance is a

의 **창조주**들과 피조물의 자유의지 행동에 바탕을 둔 성장이다.

절대 수준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하나다. 그러나 그런 절대 수준에서 떠나자마자 차이가 나타나고, 에너지와 영이 **낙원**에서 공간을 향해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들 사이의 간격은, 지방우주들에서 그것들이 크게 갈라질 때까지 벌어진다. 에너지와 영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비슷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이 개입해야 한다.

통제관 인격체들의 행위로 그 에너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정신의 활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로 이런 통제하는 실체들의 작용을 통해서 질량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질서를 산출하는 정신의 현존에 질량이 민감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지를 지닌 인격 안에서 영 자체가 에너지와 물질을 통달하기 위해 정신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한 창조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온갖 우주에서 두루, 모든 세력과 인격체는 서로 의존한다.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적 영**들은, 우주를 조직할 때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의 협동 기능에 의존하며, **최상급 동력 지휘자**들은 **으뜸 영**들의 전면통제 없이는 불완전하다. 한 인간 안에서 육체 생명 구조는 (인격있는) 정신의 명령에 어느 정도 민감하다. 바로 이 정신은 역(逆)으로, 의도하는 영의 인도에 지배될 수 있으며, 그런 진화적 발달의 결과는, **지존자**의 새로운 자손을 낳는 것, 즉 여러 종류의 시공우주 실체를 새롭게 인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경우도 그러하며; **지존성**의 영(靈) 인격자는, 완성된 **신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와 연합하는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능자**의 진화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간과 공간에서 인격체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런 노력을 최고점에 이르게 하고 완성하는 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행동이다. 이처럼 전체의 성장은, 부분들의 집합된 성장의 합계이며, 마찬가지로 부분들의 진화는, 당연히 전체가 의도한 성장이 부분화해서 반영된 것이다.

낙원에서, 단일세력과 영은 하나와 마찬가지로 다--이름으로만 구별할 수 있다. **하보나**에서는 물질과 영이 뚜렷하게 다르지만, 그와 동시에 본질적으로 조화돼 있다. 반면에, 일곱 연방우주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시공우주 에너지와 신성한 영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원형(原型)과 영적 목적을 조화시키고 결국 통합시키는 데에, 정신이 활동할 더 큰 체험 잠재력이 있다.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여러 공간 우주에는, 더 큰 신성 감소, 해결되기에 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growth which is predicated on the freewill acts of the Creators and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116:6.3 (1275.3) On absolute levels, energy and spirit are one. But the moment departure is made from such absolute levels, difference appears, and as energy and spirit move spaceward from Paradise, the gulf between them widens until in the local universes they have become quite divergent. They are no longer identical, neither are they alike, and mind must intervene to interrelate them.

116:6.4 (1275.4) That energy can be directionized by the action of controller personalities discloses the responsiveness of energy to mind action. That mass can be stabilized through the action of these same controlling entities indicates the responsiveness of mass to the order-producing presence of mind. And that spirit itself in volitional personality can strive through mind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discloses the potential unity of all finite creation.

116:6.5 (1275.5) There is an interdependence of all forces and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Creator Sons and Creative Spirits depend on the co-operative function of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in the organization of universes;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incomplete without the overcontrol of the Master Spirits. In a human being the mechanism of physical life is responsive, in part, to the dictates of (personal) mind. This very mind may, in turn, become dominated by the leadings of purposive spirit, and the result of such evolutionary development is the production of a new child of the Supreme, a new personal unific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cosmic reality.

116:6.6 (1275.6) And as it is with the parts, so it is with the whole; the spirit person of Supremacy requires the evolutionary power of the Almighty to achieve completion of Deity and to attain destiny of Trinity association. The effort is made by the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but the culmination and consummation of this effort is the act of the Almighty Supreme. And while the growth of the whole is thus a totalizing of the collective growth of the parts, it equally follows that the evolution of the parts is a segmented reflection of the purposive growth of the whole.

116:6.7 (1275.7) On Paradise, monota and spirit are as one — indistinguishable except by name. In Havona, matter and spirit, while distinguishably different, are at the same time innately harmoniou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however, there is great divergence; there is a wide gulf between cosmic energy and divine spirit; therefore is there a greater experiential potential for mind action in harmonizing and eventually unifying physical pattern with spiritual purposes. In the time-evolving universes of space there is greater divinity attenuation, more difficult problems to be

가 더 많다. 그리고 이런 연방우주의 전체 상황은, 진화로 실존하는 더 큰 경기장이 생기게 하는데, 그 속에서 시공우주 체험 가능성은, 피조물과 **창조주**에게--심지어 **지존 신격**에게 까지-- 똑같이 쓸모 있다.

영{靈}의 지배는 절대 수준들에서 실존적이지만, 유한 수준들에서,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서는 진화하는 체험이 된다. 그리고 필사적 사람으로부터 **지존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이 체험을 모두가 똑같이 공유한다. 성취하는 일에 모두가 애쓰는데, 개인적으로 애쓰며; 운명에 모두가 참여하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7. 살아있는 유기체인 광우주

광우주는, 물리적으로 웅대하고, 영적으로 장엄하고, 지적으로 고결한 물질 창조일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민감한 살아있는 유기체다. 활력이 넘치는 시공우주의 광대한 창조 체제에 두루, 실제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 우주의 물리적 실체는, 감지할 수 있는 **전능한 지존자**의 실체를 상징하며; 마치 인간 육신 전체에 신경 감각 경로들의 망이 퍼져 있는 것과 흡사하게, 물리적이고 살아있는 이 유기체에 지성 회로들이 스며있다. 물리적인 이 우주에는, 물리적 창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통로들이 팍 들어차 있는데, 그것은 인간 육체가 음식물에서 흡수될 수 있는 에너지 산물들을 순환 분배함으로, 자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우주에는, 인간의 장치인 섬세한 화학_통제 체계에 비교될만한, 엄청나게 전면통제하는 조정 중심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동력 중심의 형식에 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알기만 했다면, 우리는, 유추함으로, 물리적 우주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너희에게 일러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필사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양 에너지에 의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광우주는 물질{物質}의 활기와 공간의 시공우주 운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부 **낙원**으로부터 발산하는 끊임없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정체성과 인격을 스스로_의식하게 될 수 있도록, 정신이 필사자에게 주어졌으며; 정신은--심지어 **지존자 정신**도-- 유한자의 총체 위에 증여됐고, 그리하여 시공우주에서 떠오르는 이 인격의 영은 에너지와_물질을 통달하기 위해서 항상 분투한다.

영원한 아들의 광범한 영_인력의 붙잡는 힘, 즉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시공우주의 전체 창조계에서 영원한 영적 가치의 보편적 초물질 응집력에

solved, and larger opportunity to acquire experience in their solution. And this entire superuniverse situation brings into being a larger arena of evolutionary existence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smic experience is made available alike to creature and Creator — even to Supreme Deity.

116:6.8 (1276.1) The dominance of spirit, which is existential on absolute levels, becomes an evolutionary experience on finite levels an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is experience is shared alike by all, from mortal man to the Supreme Being. All strive, personally strive, in the achievement; all participate,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destiny.

7. THE LIVING ORGANISM OF THE GRAND UNIVERSE

116:7.1 (1276.2) The grand universe is not only a material creation of physical grandeur, spirit sublimity, and intellectual magnitude, it is also a magnificent and responsive living organism. There is actual life pulsating throughout the mechanism of the vast creation of the vibrant cosmos. The physical reality of the universes is symbolic of the perceivable reality of the Almighty Supreme; and this material and living organism is penetrated by intelligence circuits, even as the human body is traversed by a network of neural sensation paths. This physical universe is permeated by energy lanes which effectively activate material creation, even as the human body is nourished and energized by the circulatory distribution of the assimilable energy products of nourishment. The vast universe is not without those co-ordinating centers of magnificent overcontrol which might be compared to the delicate chemical-control system of the human mechanism. But if you only knew something about the physique of a power center, we could, by analogy, tell you so much more about the physical universe.

116:7.2 (1276.3) Much as mortals look to solar energy for life maintenance, so does the grand universe depend upon the unfailing energies emanating from nether Paradise to sustain the material activities and cosmic motions of space.

116:7.3 (1276.4) Mind has been given to mortals wherewith they may become self-conscious of identity and personality; and mind — even a Supreme Mind — has been bestowed upon the totality of the finite whereby the spirit of this emerging personality of the cosmos ever strives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116:7.4 (1276.5) Mortal man is responsive to spirit guidance, even as the grand universe responds to the far-flung spirit-gravity grasp of the Eternal Son,

광우주가 반응하는 것 같이, 필사적 사람은 영{靈}의 인도에 민감하다.

인간은, 파괴할 수 없는 총 우주 실체와 영구히 자아를_동일시킬 수 있다--**사고 조율사**와 융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존자**는, **원본 신격**, 즉 **낙원 삼위일체**의 절대 안정성{安定性}에 끊임없이 의존한다.

낙원의 완전함에 이르려는 사람의 충동, 즉 **하나님께**_도달하려는 그의 노력은, 살아있는 시공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상태를 창출하는데, 이 긴장상태는 오직 불멸하는 혼이 발전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으며;이것은 단일 필사 피조물의 체험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광우주에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주가 하나님께**_도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얻으려고 마찬가지로 노력할 때, 시공우주 긴장상태가 깊어지는데, 이 긴장상태는 오로지, 전능한 권능을 모든 피조물의 진화하는 **하나님**, 즉 **지존하신 분**의 영 인격자와 숭고하게 통합하는 데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the universal supermaterial cohesion of the eternal spiritual values of all the creations of the finite cosmos of time and space.

116:7.5 (1276.6) Human beings are capable of making an everlasting self-identification with total and indestructible universe reality — fusion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Likewise does the Supreme everlastingly depend on the absolute stability of Original Deity, the Paradise Trinity.

116:7.6 (1276.7) Man's urge for Paradise perfection, his striving for God-attainment, creates a genuine divinity tension in the living cosmos which can only be resolved by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this is what happens in the experience of a single mortal creature. But when all creatures and all Creators in the grand universe likewise strive for God-attainment and divine perfection, there is built up a profound cosmic tension which can only find resolution in the sublime synthesis of almighty power with the spirit person of the evolving God of all creatures, the Supreme Being.

116:7.7 (1277.1)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117편. 지존자 하나님

⇨ 116

유란시아 책

118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7편
지존자 하나님

섹션

소개

1. 지존하신 분의 본성
2. 진화 성장의 근원
3. 우주 피조물에 대한 지존자의 중요성
4. 유한한 하나님
5. 창조의 대령
6. 지존자를 탐구함
7. 지존자의 미래

PAPER 117
GOD THE SUPREME

SECTIONS

Introduction

1. Nature of the Supreme Being
2. The Source of Evolutionary Growth
3. Significance of the Supreme to Universe Creatures
4. The Finite God
5. The Oversoul of Creation
6. The Quest for the Supreme
7. The Future of the Supreme

소개

우리가 어떤 우주 위치에서 실존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정도까지, 그만큼 **지존자**의 전능한 잠재력은 한 걸음 더 실재에 가까워진다. **하나님** 뜻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목적인데,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성이 되고, **영원한 아들** 안에서 인격화되고,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 활동을 위해 결합하고, **낙원**의 영원한 원형{原型}들 안에서 영구화{永久化}된다.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뜻의 유한한 최고 형태화가 되고 있다.

전체 광우주 거주민이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언제든지 비교적 성취하게 된다면, 그때 시_공간 창조계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것이며, 그때 **지존성**의 신격 잠재성인 **전능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이 출현하면서 실재가 될 것이다.

진화하는 정신이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에 동조{同調}되면,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우주의 원형{原型}을 따라서 안정되면, 진보하는 영이 **으뜸 영**들의 결합된 사역과 접촉하게 되면, 내주하는 **조율사**의 신성한 안내에 상승 필사 인격체가 최종

INTRODUCTION

117:0.1 (1278.1) TO THE extent that we do the will of God in whatever universe station we may have our existence, in that measure the almighty potential of the Supreme becomes one step more actual. The will of God is the purpos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s it is potentialized in the three Absolutes, personalized in the Eternal Son, conjoined for universe action in the Infinite Spirit, and eternalized in the everlasting patterns of Paradise. And God the Supreme is becoming the highest finite manifestation of the total will of God.

117:0.2 (1278.2) If all grand universers should ever relatively achieve the full living of the will of God, then would the time-space creations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then would the Almighty, the deity potential of Supremacy, become factual in the emergence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117:0.3 (1278.3) When an evolving mind becomes attuned to the circuits of cosmic mind, when an evolving universe becomes stabilized after the pattern of the central universe, when an advancing spirit contacts the united ministry of the Master

적으로 동조되면, **지존자**의 실제성은 우주들에서 한 단계 더 실체가 되며;그러면 **지존성**의 신성{神性}은 시공우주 실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다.

광우주의 부분들과 개체들은 **지존자**의 전체 진화의 님은꼴로 진화하는 반면, 역으로 **지존자**는 전체 광우주의 진화를 종합한 누적 합계다. 필사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는 모두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상호작용이다.

1. 지존하신 분의 본성

지존자는, 물리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움이고, 지적 의미를 갖는 진리이며, 영적 가치를 갖는 선함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감미로움이고, 영구적 성취로 인한 기쁨이다. 그는 광우주의 대령{大靈}이고, 유한한 시공우주의 의식{意識}이며, 유한한 실체의 완성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체험이 인격화된 분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미래의 전체 영원성 내내 **신격**의 삼자일체 관계에서 자발적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최상급 창조주들의 인격자 속에서, **하나님**들은 **낙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하강했는데, 이는 거기서 **낙원**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아버지**를 찾아 그곳으로 상승할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진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강하는 **창조주**들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이런 우주 행진이, **지존자**가 **신격**으로 진화함을 드러내는데, **지존자** 안에서는 하강자와 상승자의 상호 이해, 즉 영원히 보편적으로 형제관계임을 발견한다. **지존하신 분**은, 이처럼 완전한 **창조주**의 체험과 완전하게 돌아가는 **피조물**의 반응 체험을 유한하게 종합한 존재가 된다.

광우주는 온전한 통합 가능성을 포함하고 이를 늘 추구하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통일된 **낙원 삼위일체**의 창조 행위와 권능이 내린 명령의 결과가 이 시공우주 실존이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삼자일체의 통일성이, **지존자** 안에서 유한한 시공우주 속에 표현되는데, 그의 실체는 **삼위일체**와 동일시하는 최고 수준에 우주들이 도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창조주의 뜻과 **피조물**의 뜻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체험적으로는 유사한데, 우주 완전성을 성취하는 동안, **피조물**과 **창조주**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영원한 완결성취자를 함께 창조한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육신화할 때 인간으로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이 **아들**들은 이렇게 함으로 **피조**

Spirits, when an ascending mortal personality finally attunes to the divin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n has the actuality of the Supreme become real by one more degree in the universes; then has the divinity of Supremacy advanced one more step toward cosmic realization.

117:0.4 (1278.4) The parts and individuals of the grand universe evolve as a reflection of the total evolution of the Supreme, while in turn the Supreme is the synthetic cumulative total of all grand universe evolution. From the mortal viewpoint both are evolutionary and experiential reciprocals.

1. NATURE OF THE SUPREME BEING

117:1.1 (1278.5) The Supreme is the beauty of physical harmony, the truth of intellectual meaning, and the goodness of spiritual value. He is the sweetness of true success and the joy of everlasting achievement. He is the oversoul of the grand universe, the consciousness of the finite cosmos, the completion of finite reality, and the personification of Creator-creature experience. Throughout all future eternity God the Supreme will voice the reality of volitional experience in the trinity relationships of Deity.

117:1.2 (1278.6) In the persons of the Supreme Creators the Gods have descended from Paradise to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there to create and to evolve creatures with Paradise-attainment capacity who can ascend thereto in quest of the Father. This universe procession of descending God-revealing Creators and ascending God-seeking creatures is revelatory of the Deity evolution of the Supreme, in whom both descenders and ascenders achieve mutuality of understanding, the discovery of eternal and universal brotherhood. The Supreme Being thus becomes the finite synthesis of the experience of the perfect-Creator cause and the perfecting-creature response.

117:1.3 (1279.1) The grand universe contains the possibility of, and ever seeks for, complete unification, and this grows out of the fact that this cosmic existence is a consequence of the creative acts and the power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which is unqualified unity. This very trinitarian unity is expressed in the finite cosmos in the Supreme, whose reality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as the universes attain to the maximum level of Trinity identification.

117:1.4 (1279.2) The will of the Creator and the will of the creature are qualitatively different, but they are also experientially akin, for creature and Creator can collaborate in the achievement of universe perfection. Man can work in liaison with God and thereby cocreate an eternal finaliter. God can work even as humanity in the incarnations of his Sons,

물이 되는 최고의 체험을 성취한다.

지존하신 분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의 **신격**으로 결합하는데, 이 **신격**의 뜻은 하나의 신성한 인격을 표현한다. 그리고 **네바돈의 으뜸 아들이** 주권자로서 갖는 뜻이, 이제는 신성의 뜻과 인성(人性)의 뜻이 합쳐진 것 이상(以上)의 무엇임과 같이, **지존자**의 이 뜻은, 피조물 또는 **창조주**의 뜻 이상의 무엇이다. **낙원**의 완전성과 시_공간 체험의 합동은, 실체의 신격 수준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가치를 낳는다.

지존자의 진화하는 신성한 본성은, 광우주에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주**의 비길 데 없는 체험에 대한, 신뢰할만한 묘사가 되고 있다. **지존자** 안에서, 창조자신분과 피조물신분이 하나이며; 모든 유한한 창조가 미완성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완성과 해방을 찾아 영원한 경로를 추구하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수반되는 변화에서 생긴 그 체험으로 인해 그들은 영원토록 결합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영**의 사역, **낙원**의 웅장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지존자**의 체험에서 서로 관련된다. **지존자 하나님**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 **이신데**, 이런 신성 개념이 관념적 체험의 유한한 최고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삼중적 특성의 영원한 근원은 유한한 초월 수준에 있지만, 피조물은 그런 근원을, 초월적 진리, 초월적 아름다움, 및 초월적 선함으로써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창조자 **미가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녀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애정을 발견하고 받아들였으므로, 사람은 육신 속에 있는 형제에게도 이 사랑을 드러내기를 열망할 수 있다. 피조물의 그런 애정은 **지존자**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다.

지존자는 대칭으로 포괄적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위대한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하고, **낙원**에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실재하지만; **지존자**는, 실재하면서 잠재하는, 인격적 지존성과 전능한 권능을 가진 존재인데, 피조물의 노력과 **창조주**의 목적에 똑같이 반응하며; 우주에 대하여 스스로_행동하고, 우주의 전체 총합에 대하여 스스로_반응하며; 그리고 동시에 최고 창조자이자 최고 피조물이다. **지존성 신격**은 이처럼 유한자 전체의 총합을 나타낸다.

2. 진화 성장의 근원

지존자는 시간_속의_하나님이며; 시간세계에

who thereby achieve the supremacy of creature experience.

117:1.5 (1279.3) In the Supreme Being, Creator and creature are united in one Deity whose will is expressive of one divine personality. And this will of the Supreme is something more than the will of either creature or Creator, even as the sovereign will of the Master Son of Nebadon is now something more than a combination of the will of divinity and humanity. The union of Paradise perfection and time-space experience yields a new meaning value on deity levels of reality.

117:1.6 (1279.4) The evolving divine nature of the Supreme is becoming a faithful portrayal of the matchless experience of all creatures and of all Creators in the grand universe. In the Supreme, creatorship and creaturehood are at one; they are forever united by that experience which was born of the vicissitudes attendant upon the solution of the manifold problems which beset all finite creation as it pursues the eternal path in quest of perfection and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incompleteness.

117:1.7 (1279.5)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correlated in the ministry of the Spirit, the grandeur of Paradise, the mercy of the Son, and the experience of the Supreme. God the Supreme is truth, beauty, and goodness, for these concepts of divinity represent finite maximums of ideational experience. The eternal sources of these triune qualities of divinity are on superfinite levels, but a creature could only conceive of such sources as supertruth, superbeauty, and supergoodness.

117:1.8 (1279.6) Michael, a creator, revealed the divine love of the Creator Father for his terrestrial children. And having discovered and received this divine affection, men can aspire to reveal this love to their brethren in the flesh. Such creature affection is a true reflection of the love of the Supreme.

117:1.9 (1279.7) The Supreme is symmetrically inclusiv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otential in the three great Absolutes, is actual in Paradise, in the Son, and in the Spirit; but the Supreme is both actual and potential, a being of personal supremacy and of almighty power, responsive alike to creature effort and Creator purpose; self-acting upon the universe and self-reactive to the sum total of the universe; and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supreme creator and the supreme creature. The Deity of Supremacy is thus expressive of the sum total of the entire finite.

2. THE SOURCE OF EVOLUTIONARY GROWTH

117:2.1 (1280.1) The Supreme is God-in-time; his is

서 피조물이 성장하는 비결은 **지존자**에게 속하며; 완성되지 않은 현재를 정복하고 완성시키는 미래의 완료 역시 **지존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모든 유한한 성장의 최종 결실은: 통합시키면서 창조하는 인격이 현존하는 덕분으로, 영이 정신을 통해서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런 모든 성장이 최고조에 달한 결과가 **지존하신 분**이다.

필사적 사람에게, 실존은 성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우주 의미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영의 인도를 받는 실존은, 체험 성장을--곧 자격의 확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현재 우주 시대에 피조물 실존의 특징을 나타내는 현재의 성장은 **지존자**의 역할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성장은 **지존자**가 성장하는 시대에 특유하다는 것과, **지존자**가 성장을 완성함과 함께 종료되리라는 것을 똑같이 주장한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화된 아들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 정신 및 영 재능과 함께 인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고 그 기억을 지니지만, 상승하는 존재들처럼 성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기로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화된 이 아들들은 현재 우주 시대 *에* 있지만, 정말로 다음 우주 시대--곧 **지존자**의 성장이 완성된 다음에 있게 될 시대--*에* 속한다.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따라서 성장하는 **지존자**의 현재 상태의 시점에서, 그들은 **지존자**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해 예비돼 있다.

내가 속한 계층인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에 포용됐으므로, 현재 우주 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삼위일체**의 **상비 아들들**인 것처럼, 신분으로는 지나간 우주 시대에 속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신분이 **삼위일체**에 포용됨으로 고정됐고, 체험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완결성취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지존자**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진화하고 체험하는 어떤 다른 계층에게든지 해당되지 않는다. **낙원**에 도달하고 완결성취자 신분을 얻기를 열망하면서 **유란시아**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 필사자는, 오직 너희가 **지존자** 안에 있고, 그에게서 나왔고, 따라서 **지존자**의 성장 순환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존자의 성장은 언젠가 끝날 것이며; 그의 신분은 (에너지와 영의 의미에서 볼 때) 완성될 것이다. **지존자**의 진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지존성**의 일부분으로서 피조물의 진화도 끝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장이 외부 공간 우주들의 특

the secret of creature growth in time; his also is the conquest of the incomplete present and the consummation of the perfecting future. And the final fruits of all finite growth are: power controlled through mind by spirit by virtue of the unifying and creative presence of personality. The culminating consequence of all this growth is the Supreme Being.

117:2.2 (1280.2) To mortal man, existence is equivalent to growth. And so indeed it would seem to be, even in the larger universe sense, for spirit-led existence does seem to result in experiential growth — augmentation of status. We have long held, however, that the present growth which characterizes creature existenc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is a function of the Supreme. We equally hold that this kind of growth is peculiar to the age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and that it will terminate with the comple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117:2.3 (1280.3) Consider the status of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y are born and liv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ey have personalities, together with mind and spirit endowments. They have experiences and the memory thereof, but they do not grow as do ascenders. It is our belief and understanding that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while they ar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are really *of* the next universe age — the age which will follow the comple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Hence they are not *in* the Supreme as of his present status of incompleteness and consequent growth. Thus they are nonparticipating in the experiential growth of the present universe age, being held in reserve for the next universe age.

117:2.4 (1280.4) My own order, the Mighty Messengers, being Trinity embraced, are nonparticipating in the growth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n a sense we are in status as of the preceding universe age as in fact ar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One thing is certain: Our status is fixed by the Trinity embrace, and experience no longer eventuates in growth.

117:2.5 (1280.5) This is not true of the finalizers nor of any other of the evolutionary and experiential orders which are participants in the growth process of the Supreme. You mortals now living on Urantia who may aspire to Paradise attainment and finaliter status should understand that such a destiny is only realizable because you are in and of the Supreme, hence are participants in the cycle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117:2.6 (1280.6) There will come an end sometime to the growth of the Supreme; his status will achieve completion (in the energy-spirit sense). This termination of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will also witness the ending of creature evolution as a part of Supremacy. What kind of growth may

징을 나타낼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연방우주가 진화하는 현재 시대에 우리가 봐온 모든 것과 매우 다른 어떤 것이 되리라고 우리는 아주 확신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존성** 성장으로 인한 이 결핍을 외부_공간_존재들이 메워주는 것이, 광우주에서 진화하는 시민{市民}들의 역할 일 것이다.

현재 우주 시대가 완료되면서 실존할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에서 체험 주권자로서 작용할 것이다. 외부_공간_존재들은--곧 다음 우주 시대의 시민들은--, 연방우주시대 이후의 성장 잠재력을 지닐 것인데, 이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주권을 전체로 하는 진화로 획득한 수용력이며, 따라서 현 우주 시대의 권능과_인격을 함성하는 데 피조물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이처럼 **지존자**의 미완성은 하나의 장점으로 간주될지도 모르는데, 이는 그것이 현재 우주들에 있는 피조물과_창조의 진화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상태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빈 것이 체험으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철학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진화에 반응해서 현실화하는가, 아니면 **지존자**가 점차 현실화하는 데 반응해서 이 유한한 시공우주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발전하려고 서로 의존하는 것, 그들이 진화에서 호혜적{互惠的}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다:피조물과 우주들은, 높든지 낮든지, **지존자** 안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우주 시대의 유한한 활동 전체의 통합된 합계가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존하신 분**의 출현이요, 모든 인격체에게 **지존자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이 진화하는 것이다.

3. 우주 피조물에 대한 지존자의 중요성

지존하신 분, 지존자 하나님, 전능한 지존자 등으로 다양하게 일컫는 시공우주 실체는, 떠오르는 국면에 있는 모든 유한한 실체를, 복잡하게 보편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영원한 에너지, 신성한 영, 및 보편적 정신의 광범한 분화는 **지존자**의 진화에서 유한한 절정에 도달하는데, **지존자**는 모든 유한한 성장의 총합이요, 유한하게 최대로 완성하는 신적 수준에서 스스로_실현한 것이다.

지존자는, 공간에서 성운이 펼쳐지는 광경 속에 구체화되는 삼극체들의 창조적 무한성이 흐르는 신성한 경로이며, 그 광경을 배경으로 시간제

characterize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we do not know. But we are very sure that it will be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anything that has been seen in the present age of the evolu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will undoubtedly be the function of the evolutionary citizens of the grand universe to compensate the outer-spacers for this deprivation of the growth of Supremacy.

117:2.7 (1280.7) As existent upon the consumm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upreme Being will function as an experiential sovereign in the grand universe. Outer-spacers — citizens of the next universe age — will have a postsuperuniverse growth potential, a capacity for evolutionary attainment presupposing the sovereignty of the Almighty Supreme, hence excluding creature participation in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117:2.8 (1281.1) Thus may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be regarded as a virtue since it makes possible the evolutionary growth of the creature-creation of the present universes. Emptiness does have its virtue, for it may become experientially filled.

117:2.9 (1281.2) One of the most intriguing questions in finite philosophy is this: Does the Supreme Being actualize in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the grand universe, or does this finite cosmos progressively evolve in response to the gradual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Or is it possible that they are mutually interdependent for their development? that they are evolutionary reciprocals, each initiating the growth of the other? Of this we are certain: Creatures and universes, high and low, are evolving within the Supreme, and as they evolve, there is appearing the unified summation of the entire finite activity of this universe age. And this is the appearance of the Supreme Being, to all personalities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God the Supreme.

3. SIGNIFICANCE OF THE SUPREME TO UNIVERSE CREATURES

117:3.1 (1281.3) The cosmic reality variously designated as the Supreme Being, God the Supreme, and the Almighty Supreme, is the complex and universal synthesis of the emerging phases of all finite realities. The far-flung diversification of eternal energy, divine spirit, and universal mind attains finite culmination in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who is the sum total of all finite growth, self-realized on deity levels of finite maximum completion.

117:3.2 (1281.4) The Supreme is the divine channel through which flows the creative infinity of the triodities that crystallizes into the galactic

계에서 장엄한 인격체 드라마가 발생하는데: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와_물질을 정복하는 드라마다.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했으며, 그래서 그는 자아를_의식하는 물질 수준으로부터, **하나님**을_의식하는 영적 수준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 올라가는 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지존자**는,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의식을 초월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한절대성의 통찰력까지도 도달하는 생명의 길이다.

너희의 **창조주 아들**은 실제로, 인성으로부터 신성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경로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아**,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참된 인성으로부터, **네바돈의 미가엘**, 즉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낙원** 신성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진보하는 이 경로를 충실하게 횡단하는 체험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존하신 분**은 유한한 한계를 초월하는 우주 접근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피조물의 모든 진화, 진보, 및 영화(靈化)를 실제로 구현한 분이요, 몸소 요약한 분이기 때문이다. **낙원**에서 하강하는 인격체들의 광우주 체험조차, **지존하신 분**이 겪는 체험의 일부이며, 이것은 시간세계의 순례자의 상승하는 체험을 그가 총합한 것을 보완한다.

필사적 사람은, 비유로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 이상{以上}의 존재다.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은 도저히 진실이 아니지만, 어떤 우주 잠재성의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온갖 우주에서 광대하게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진화로 달성하는 바로 그 드라마와 비슷한 무엇이,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다. 의지를 지닌 인격체인 사람은, **지존자**의 유한한 잠재성이 있는 가운데, 비인격 실체인 **조율사**와 연합해서 창조성을 가지며,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이 꽃피게 된다. 우주들에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인격체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인격 영과 연합해서 활동하며, 그리하여 **신격** 실체의 새로운 권능 잠재성을 창조하게 된다.

필사적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신격{神格}인 **지존하신 분**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의 진화는 어떤 면에서 **지존자**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강하고 효력 있고 끈질긴가에 따라서, 물질적인 상태에서부터 영적인 상태로, 의식하면서 성장하며; 또한 사람은, **사조율사**가 영적 수준에서 하강하여 모론시아 혼 수준에 이르려고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함에 따라서 성장하며; 혼이 일단 생기면, 혼은 그 자체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지존하신 분**이 확장하는 방법과 어느

panorama of space, against which takes place the magnificent personality drama of time: the spirit conquest of energy-matter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117:3.3 (1281.5) Said Jesus: “I am the living way,” and so he is the living way from the material level of self-consciousness to the spiritual level of God-consciousness. And even as he is this living way of ascension from the self to God, so is the Supreme the living way from finite consciousness to transcendence of consciousness, even to the insight of absonity.

117:3.4 (1281.6) Your Creator Son can actually be such a living channel from humanity to divinity since he has personally experienced the fullness of the traversal of this universe path of progression, from the true humanity of Joshua ben Joseph, the Son of Man, to the Paradise divinity of Michael of Nebadon, the Son of the infinite God. Similarly can the Supreme Being function as the universe approach to the transcendence of finite limitations, for he is the actual embodiment and personal epitome of all creature evolution, progression, and spiritualization. Even the grand universe experiences of the descending personalities from Paradise are that part of his experience which is complementary to his summation of the ascending experiences of the pilgrims of time.

117:3.5 (1281.7) Mortal man is more than figuratively made in the image of God. From a physical standpoint this statement is hardly true, but with reference to certain universe potentialities it is an actual fact. In the human race, something of the same drama of evolutionary attainment is being unfolded as takes place, on a vastly larger scal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Man, a volitional personality, becomes creative in liaison with an Adjuster, an impersonal entity, in the presence of the finite potentialities of the Supreme, and the result is the flowering of an immortal soul. In the universes th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function in liaison with the impersonal spiri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become thereby creative of a new power potential of Deity reality.

117:3.6 (1282.1) Mortal man, being a creature, is not exactly like the Supreme Being, who is deity, but man's evolution does in some ways resemble the growth of the Supreme. Man consciously grows from the material toward the spiritual by the strength, power, and persistency of his own decisions; he also grows as his Thought Adjuster develops new techniques for reaching down from the spiritual to the morontial soul levels; and once the soul comes into being, it begins to grow in and of itself.

117:3.7 (1282.2) This is somewhat like the way in which the Supreme Being expands. His

정도 유사하다. 그의 주권은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행위와 성취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성장하며; 그것은 광우주의 통치자로서 그의 웅대한 권능이 진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신격 본성은, **낙원 삼위일체**의 선제하는 통일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에 여전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는 **창조주**에게서 진화되고 **삼위일체**에게서 파생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파생하기도 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자신이 신격으로 사실화할 때, 그 자신이 의도하는, 독창적인 참여자다. 인간의 모론시아 혼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불멸화할 때 의도적이고 독창적인 동역자다.

낙원의 에너지를 조종하고 그 에너지를 **지존자**에게 반응하도록 만들 때, **아버지**는 **공동 행위자**와 함께 일하신다. **창조주** 인격체들을 산출할 때,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두 분의 활동은 언젠가 마침내 **지존자**의 주권을 이룰 것이다. **지존자**의 진화가 완성되어, 그가 그 주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광우주의 통치자로서 활동할 **삼위일체** 인격체들을 창조할 때, **아버지**는 **아들**과 **영**, 두 분과 함께 일하신다. **지존성**의 진화를 촉진하면서 이 방법들 및 기타 여러 방법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신격** 및 **신격**이 아닌 동격 존재들과 협동하지만, 또한 이런 문제들에서 홀로 작용하신다. 그리고 그의 독자적 역할은, 아마 **사고 조율사** 및 관련된 실체들이 베푸는 사역에서 최고로 잘 드러날 것이다.

신격은 통일성인데, **삼위일체**로서는 실존적이고, **지존자**로서는 체형적이며, 필사자의 경우에는, **조율사** 융합으로 피조물로서 실현된다. 필사적 사람 속에 **사고 조율사**가 현존하심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사람, 즉 가능한 가장 낮은 우주 인격체가 그 속에 가장 높고 영원한 실체, 심지어 모든 인격체들의 원래 **아버지**의 실제 부분조차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존하신 분은, **낙원 삼위일체**와 접촉하는 덕분으로 진화하고, 그 **삼위일체**의 자녀인 창조자 및 경영자들이 신성{神性}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진화한다. 사람의 불멸하는 혼은,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과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인간 정신이 내리는 인격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시킨다. **삼위일체**와 **지존자 하나님**의 관계는, **조율사**와 진화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 대행자들이 유한한 행동 가능성을 다 소모한 경우 외에, 현재 우주 시대에 **지존하신 분**은 창조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우주 역사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오직 한 번 일어났는데; 우주 반사성에 관해서 유한한 행동 가능성이 모두 소모됐을 때, 이때 **지존자**는 전에 있던 모든 창조자 행위를 창조적으로 완성하는 자로서 작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창조자신분이 창조 활동의 고유 주기를 마칠

sovereignty grows in and out of the acts and achievement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that is the evolution of the majesty of his power as the ruler of the grand universe. His deity nature is likewise dependent on the pre-existent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But there is still another aspect to the evolution of God the Supreme: He is not only Creator-evolved and Trinity-derived; he is also self-evolved and self-derived. God the Supreme is himself a volitional, creative participant in his own deity actualization. The human morontial soul is likewise a volitional, cocreative partner in its own immortalization.

117:3.8 (1282.3)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the Conjoint Actor in manipulating the energies of Paradise and in rendering these responsive to the Supreme.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the Eternal Son in the production of Creator personalities whose acts will sometime culminate in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both Son and Spirit in the creation of Trinity personalities to function as rulers of the grand universe until such time as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Supreme qualifies him to assume that sovereignty. The Father co-operates with his Deity and non-Deity co-ordinates in these and many other ways in the furtherance of the evolution of Supremacy, but he also functions alone in these matters. And his solitary function is probably best revealed in the ministr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117:3.9 (1282.4) Deity is unity, existential in the Trinity, experiential in the Supreme, and, in mortals, creature-realized in Adjuster fusion.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in mortal man reveals the essential unity of the universe, for man, the lowest possible type of universe personality, contains within himself an actual fragment of the highest and eternal reality, even the original Father of all personalities.

117:3.10 (1282.5) The Supreme Being evolves by virtue of his liaison with the Paradise Trinity and in consequence of the divinity successes of the creator and administrator children of that Trinity. Man's immortal soul evolves its own eternal destiny by association with the divine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ity decisions of the human mind. What the Trinity is to God the Supreme, the Adjuster is to evolving man.

117:3.11 (1282.6)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upreme Being is apparently unable to function directly as a creator except in those instances where the finite possibilities of action have been exhausted by the creative agencies of time and space. Thus far in universe history this has transpired but once; when the possibilities of finite action in the matter of universe reflectivity had been exhausted, then did the Supreme function as

때에는 언제든지, 미래 시대에 완성자로서 다시 작용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지존하신 분이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글자 그대로, **지존자**의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됐고, 사람의 바로 그 생명도 거기서 파생됐다. 그가 사람을 진화시키지 않았지만;그럼에도 바로 **지존자**가 진화의 본질 자체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존자**의 내재성 안에서 실제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

지존자는 최초의 원인을 시작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을 촉진시키는 존재인 듯하며, 겉으로는 체험으로 진화하는 모든 존재의 운명에 관해서 총체의 완성을 마련하도록 예정된 듯하다. **아버지**께서는 유한한 시공우주의 개념을 창설하시며;**창조주 아들**들은 **창조적 영**들의 동의와 협동을 얻어서, 시간과 공간에서 이 관념을 사실화하며;**지존자**는 유한자 전체를 완성시키고, 유한자 전체가 유한절대자 운명과 갖는 관계를 확립한다.

4. 유한한 하나님

완전한 신분을 얻고 신 같은 존재가 되려는, 창조된 피조물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건대, 우리는 이런 끝없는 노력이, **지존자**가 신성한 자아_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투하는 증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지존자 하나님**은 유한한 **신격**이며, 그 단어의 전체 의미로 볼 때, 그는 유한계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공간에서 진화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의 변천과 별이는 싸움은, 그의 진화하는 본성이 가능한 가장 바깥쪽 한계까지 확장하고 있는 행동 영역 안에서, 자아의 실체와 주권의 완성을 성취하려는 그의 노고를 반영한 것이다.

지존자는 광우주에 두루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의 신성한 진화는, 실존하는 모든 인격체의 이해와_행동에 어느 정도 근거한다. 한 인간이 영원한 생존을 선택할 때, 그는 운명을 공동으로_창조하며, 상승하는 이 필사자의 생애에서, 유한한 **하나님**은 인격의 자아_실현이 증가하고 체험적 주권이 확장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 피조물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이 피조물의 선택에 의존했던, **지존자**의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 지연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대체하거나 추가적인 체험으로 보충돼야만 하는 결핍이며;생존하지 못하는 인격의 경우에, 그것은 창조의 대령{大靈} 속으로 흡수되어 **지존 신격**의 일부분이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이 많으시므

the creative culminator of all antecedent creator actions. And we believe he will again function as a culminator in future ages whenever antecedent creatorship has completed an appropriate cycle of creative activity.

117:3.12 (1283.1) The Supreme Being did not create man, but man was literally created out of, his very life was derived from, the potentiality of the Supreme. Nor does he evolve man; yet is the Supreme himself the very essence of evolution. From the finite standpoint, we actually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within the immanence of the Supreme.

117:3.13 (1283.2) The Supreme apparently cannot initiate original causation but appears to be the catalyzer of all universe growth and is seemingly destined to provide totality culmination as regards the destiny of all experiential-evolutionary beings. The Father originates the concept of a finite cosmos; the Creator Sons factualize this idea in time and space with the consent and co-operation of the Creative Spirits; the Supreme culminates the total finite and establishes its relationship with the destiny of the absonite.

4. THE FINITE GOD

117:4.1 (1283.3) As we view the ceaseless struggles of the creature creation for perfection of status and divinity of being, we cannot but believe that these unending efforts bespeak the unceasing struggle of the Supreme for divine self-realization. God the Supreme is the finite Deity, and he must cope with the problems of the finite in the total sense of that word. Our struggles with the vicissitudes of time in the evolutions of space are reflections of his efforts to achieve reality of self and completion of sovereignty within the sphere of action which his evolving nature is expanding to the outermost limits of possibility.

117:4.2 (1283.4)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 Supreme struggles for expression. His divine evolution is in measure predicated on the wisdom-action of every personality in existence. When a human being chooses eternal survival, he is cocreating destiny; and in the life of this ascending mortal the finite God finds an increased measure of personality self-realization and an enlargement of experiential sovereignty. But if a creature rejects the eternal career, that part of the Supreme which was dependent on this creature's choice experiences inescapable delay, a deprivation which must be compensated by substitutional or collateral experience; as for the personality of the nonsurvivor, it is absorbed into the oversoul of creation, becoming a part of the Deity of the Supreme.

117:4.3 (1283.5) God is so trusting, so loving, that he

로, 보관하면서 자아를_실현하라고 자신의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을 심지어 인간의 손에 맡기기까지 하신다. **아버지**의 본성, 즉 **조율사** 현존은, 필사 존재의 선택에 상관없이 불멸한다. 잘못 인도된 그런 자아의 잠재적으로 통합하는 인격이, **지존성 신격**의 한 요소로서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자녀, 즉 진화하는 자아는 소멸될 수 있다.

인간의 인격은 피조물신분의 개체성을 정말로 파괴할 수 있고, 시공우주에서 자멸하는 그런 생애에서 가치 있었던 모든 것이 존속되겠지만, *이 특성들은 하나의 개별 피조물로서는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존자**가 우주들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지만, 그런 특정한 인격자로서는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상승하지 않는 존재의 독특한 인격은, 바다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지존자**에게 돌아간다.

유한자의 인격있는 부분들이 어떤 분리된 행동을 하든지, **지존자 총체**가 중국에 출현하는 데는 비교적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전체는 다양한 부분의 전체 행위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인격은 **지존성**의 총체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지만, 각 인간의 인격은, 유한자에게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대표하며; 인격은, 일단 나타난 후에는, 살아있는 그 인격체가 계속 실존할 경우 외에는, 결코 다시 동일한 표현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_표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지존자**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격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발견하듯이, **지존자**는 만유의 **낙원 창조주**를 다시 발견했다. 우리가 자아_실현의 문제를 통달하듯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전능한 지존성을 성취하시고 있다.

인류는 우주에서 노력하지 않고는 상승하지 못하며, 또한 **지존자**는 의도적이고 지성적인 행동 없이는 진화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단순히 수동적 태도만으로는 완전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지존성**의 영은 유한한 창조에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역을 베풀지 않고는 **전능자**의 권능을 사실화시키지 못한다.

현세에 사람이 **지존자**와 갖는 관계는, 시공우주 도덕성, 즉 **의무**에 대한 보편적 민감성을 기르고 그 **의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잠시 느끼는 것을 초월하는 도덕성이며; 그 도덕성은, 자아_의식하는 피조물이 체험하는 **신격**에 대한 체험적 책무를 이해하는데 직접 달려있다. 필사적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유한한 피조물은, **지존자** 속에 현존하는 에너지, 정신, 및 영의 살아있는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된다. **조율사**와_필사_상승자는, 완결성취자의 불멸성과 신성한 성품을 창조하기 위해 **지존자**에게 의존한다. **조율사**는, **지존자**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 인간 의지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승하는

gives a portion of his divine nature into the hands of even human beings for safekeeping and self-realization. The Father nature, the Adjuster presence, is indestructible regardless of the choice of the mortal being. The child of the Supreme, the evolving self, can be destroyed notwithstanding that the potentially unifying personality of such a misguided self will persist as a factor of the Deity of Supremacy.

117:4.4 (1283.6) The human personality can truly destroy individuality of creaturehood, and though all that was worth while in the life of such a cosmic suicide will persist, *these qualities will not persist as an individual creature.* The Supreme will again find expression in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but never again as that particular person; the unique personality of a nonascender returns to the Supreme as a drop of water returns to the sea.

117:4.5 (1284.1) Any isolated action of the personal parts of the finite is comparatively irrelevant to the eventual appearance of the Supreme Whole, but the whole is nonetheless dependent on the total acts of the manifold parts.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mortal is insignificant in the face of the total of Supremacy, but the personality of each human being represents an irreplaceable meaning-value in the finite; personality, having once been expressed, never again finds identical expression except in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at living personality.

117:4.6 (1284.2) And so, as we strive for self-expression, the Supreme is striving in us, and with us, for deity expression. As we find the Father, so has the Supreme again found the Paradise Creator of all things. As we master the problems of self-realization, so is the God of experience achieving almighty supremac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17:4.7 (1284.3) Mankind does not ascend effortlessly in the universe, neither does the Supreme evolve without purposeful and intelligent action. Creatures do not attain perfection by mere passivity, nor can the spirit of Supremacy factualize the power of the Almighty without unceasing service ministry to the finite creation.

117:4.8 (1284.4) The temporal relation of man to the Supreme is the foundation for cosmic morality, the universal sensitivity to, and acceptance of, *duty*. This is a morality which transcends the temporal sense of relative right and wrong; it is a morality directly predicated on the self-conscious creature's appreciation of experiential obligation to experiential Deity. Mortal man and all other finite creatures are created out of the living potential of energy, mind, and spirit existent in the Supreme. It is upon the Supreme that the Adjuster-mortal ascender draws for the creation of the immortal and divine character of a finaliter. It is out of the

아들의 영원한 본성의 원형들을 조립한다.

인간의 인격을 영화{靈化}시키고 영존화{永存化}시키는 일에서, **조울사** 진보의 진화는 **지존자**의 주권을 직접 확장시킨다. 인간의 진화에서 그런 업적은, 역시 **지존자**가 진화로 실제화하는 업적이다. **지존자** 없이는 피조물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피조물의 완성된 진화에 관계없이 **지존자**의 진화가 결코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이다. 자아를_의식하는 인격체들의 큰 시공우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존 신격**은 필사자 의지의 선택에 의존한다. 그리고 피조물의 진화와 **지존자**의 진화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우주 반사성이라는 불가해한 체제를 통해서, **태고 항존자**들에게 충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된다.

필사적 사람에게 주어진 큰 도전은 이렇다: 시공우주의 체험할 수 있는 가치 의미를, 바로 너의 진화하는 자아성 속으로 개인화 시키겠다는 결정을 네가 하겠는가? 아니면 생존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다른 시대에 유한한 **하나님**의 진화에 피조물로서 공헌하기를, 다른 피조물이 **자신**의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행동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지존성**의 이 비밀이 잠자고 있도록 네가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존자**에게 공헌한 것이 될 것이며, 네 것이 아니다.

이 우주 시대의 큰 싸움은, 잠재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사이에 있다--곧 아직 표현되지 않은 모든 것이 실현되기를 추구한다. 필사적 사람이 **낙원** 모험에 착수했다면, 그는 영원이라는 넷물 안에 있는 물결처럼, 흐르는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필사적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그는 유한한 우주들에서 사건들의 흐름에 역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창조는, **낙원 아버지**의 펼쳐지는 목적에 따라서 무정하게 계속 움직이지만, 의지에 따른 창조는, 영원성의 탐험에 참여하는 인격의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필사적 사람은, 인간 실존의 최고 가치를 파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몸소 겪는 체험에서 이 가치의 진화를 아주 명확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낙원** 상승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범위까지, 바로 그 정도까지 **지존자**는 광우주에서 신성 표현의 성취가 연기된다.

낙원 아버지께서 필사적 사람에게, **조울사**의 현존을 보관하라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존자**의 장차 미세한 단편의 운명을 통제하는 권한도 맡기셨다. 사람이 인간의 운명에 도달함에 따라서, **지존자**도 그렇게 신격 수준에서 운명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very reality of the Supreme that the Adjuster, with the consent of the human will, weaves the patterns of the eternal nature of an ascending son of God.

117:4.9 (1284.5) The evolution of Adjuster progress in the spiritualizing and eternalizing of a human personality is directly productive of an enlargement of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Such achievements in human evolution are at the same time achievements in the evolutionar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While it is true that creatures could not evolve without the Supreme, it is probably also true that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can never be fully attained independent of the completed evolution of all creatures. Herein lies the great cosmic responsibility of self-conscious personalities: That Supreme Deity is in a certain sense dependent on the choosing of the mortal will. And the mutual progression of creature evolution and of Supreme evolution is faithfully and fully indicated to the Ancients of Days over the inscrutable mechanisms of universe reflectivity.

117:4.10 (1284.6) The great challenge that has been given to mortal man is this: Will you decide to personalize the experiential value meanings of the cosmos into your own evolving selfhood? or by rejecting survival, will you allow these secrets of Supremacy to lie dormant, awaiting the action of another creature at some other time who will in *his* way attempt a creature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the finite God? But that will be his contribution to the Supreme, not yours.

117:4.11 (1284.7) The great struggle of this universe age is between the potential and the actual — the seeking for actualization by all that is as yet unexpressed. If mortal man proceeds upon the Paradise adventure, he is following the motions of time, which flow as currents within the stream of eternity; if mortal man rejects the eternal career, he is moving counter to the stream of events in the finite universes. The mechanical creation moves on inexorably in accordance with the unfolding purpose of the Paradise Father, but the volitional creation has the choice of accepting or of rejecting the role of personality participation in the adventure of eternity. Mortal man cannot destroy the supreme values of human existence, but he can very definitely prevent the evolution of these values in his own personal experience. To the extent that the human self thus refuses to take part in the Paradise ascent, to just that extent is the Supreme delayed in achieving divinity expression in the grand universe.

117:4.12 (1285.1) Into the keeping of mortal man has been given not only the Adjuster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but also control over the destiny of an infinitesimal fraction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For as man attains human destiny, so does the Supreme achieve destiny on deity levels.

그리하여 그 결정은, 한때 우리 각자를 기다렸듯이 너희 각자를 기다리는데: 유한한 정신의 결정에 그토록 의존하시는, 시간세계의 **하나님**을, 너는 실망시킬 것인가? 동물처럼 퇴보하는 나태함으로 인해, 너는 우주들의 **지존자** 인격체를 실망시킬 것인가? 각 피조물에게 그토록 의존하는, 모든 피조물의 대형{大兄}을, 너는 실망시킬 것인가? 우주 생애의 매혹적인 광경이--곧 **낙원 아버지**를 신성하게 발견하고, **지존 하나님**을 찾아서, **지존 하나님**의 진화에 신성하게 참여할 기회가--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너는 실현하지 못한 자의 영토 속으로 자신이 사라지도록 버려둘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은--곧 **하나님**이 증여하는 실체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는 창조물을 멀리하지 않지만, **낙원**을 도는 창조계들 속에 긴장상태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불멸성--곧 영원한 실체--의 잠재력을 수여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실제로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사람의 실체는--곧 실재성은-- 점점 커진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비실체{非實體}--곧 실존의 중지--에 점점 가까워진다.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자기 의지를 성별하게 되면, 즉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현재보다 더 낮게 만드신다.

5. 창조의 대령

위대한 **지존자**는 광우주에서 시공우주 대령{大靈}이다. 시공우주의 질{質}과 양{量}은 **지존자** 안에서 자체의 신격 닮은꼴 발견하며; 그의 신격 본성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성을 합성한 완전히 방대한 모자이크다. 그리고 **지존자**는 현실화하는 **신격**인데,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함하는 창조 의지를 구현한다.

유한자의 지적 자아, 잠재적으로 인격있는 자아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출현하며, 시공공간에서 유한한 **신격**의 합성을 **지존자** 안에서 성취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를 때, 그는 자신의 인격을 매몰시키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며; 유한한 **하나님**의 현실화에 참여하는 개별 인격체들은, 그렇게 활동함으로 자신의 의지 자아성을 잃는 경우가 없다. 그런 인격체들은 오히려 이 큰 **신격** 탐험에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커지며; 인간은 신성과 그렇게 합동함으로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를 지존성의 바로 그 입구까지 높이고, 강화하고, 영성화시키고, 통일시킨다.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즉 물질 정신과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은, 그런 자격으로 **낙원**까지 상승하며, 나중에, **완결성취 단체**에 모집됐을 때,

117:4.13 (1285.2) And so the decision awaits each of you as it once awaited each of us: Will you fail the God of time, who is so dependent upon the decisions of the finite mind? will you fail the Supreme personality of the universes by the slothfulness of animalistic retrogression? will you fail the great brother of all creatures, who is so dependent on each creature? can you allow yourself to pass into the realm of the unrealized when before you lies the enchanting vista of the universe career — the divine discovery of the Paradise Father and the divine participation in the search for, and the evolution of, the God of Supremacy?

117:4.14 (1285.3) God's gifts — his bestowal of reality — are not divorcements from himself; he does not alienate creation from himself, but he has set up tensions in the creations circling Paradise. God first loves man and confers upon him the potential of immortality — eternal reality. And as man loves God, so does man become eternal in actuality. And here is mystery: The more closely man approaches God through love, the greater the reality — actuality — of that man. The more man withdraws from God, the more nearly he approaches nonreality — cessation of existence. When man consecrates his will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when man gives God all that he has, then does God make that man more than he is.

5. THE OVERSOUL OF CREATION

117:5.1 (1285.4) The great Supreme is the cosmic oversoul of the grand universe. In him the qualities and quantities of the cosmos do find their deity reflection; his deity nature is the mosaic composite of the total vastness of all creature-Creator nature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And the Supreme is also an actualizing Deity embodying a creative will which embraces an evolving universe purpose.

117:5.2 (1285.5) The intellectual, potentially personal selves of the finite emerge from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achieve finite time-space Deity synthesis in the Supreme. When the creature submits to the will of the Creator, he does not submerge or surrender his personality; the individual personality participants in the actualization of the finite God do not lose their volitional selfhood by so functioning. Rather are such personalities progressively augmented by participation in this great Deity adventure; by such union with divinity man exalts, enriches, spiritualizes, and unifies his evolving self to the very threshold of supremacy.

117:5.3 (1286.1) The evolving immortal soul of man, the joint creation of the material mind and the Adjuster, ascends as such to Paradise and

완결성취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 기법으로,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완결성취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체험적으로 인식되기에 적절한 후보자가 된다. 그리고 **완결성취단체**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 임무에서 이 필사자 지능이 일곱째 단계의 영 실존에 도달할 때, 그런 이중{二重} 정신은 삼중 정신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 조화된 이 두 정신은, 이때 실체화된 **지존하신 분**의 체험적 정신과 연합한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그렇게 드러난 바와 같이, 영원한 미래에, **지존자 하나님**은, 영화{靈化}된 정신, 즉 상승한 사람의 불멸의 혼 속에서 실체화될 것이다--곧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으로 묘사될 것이다.

사람은 **지존자**와 하나 되어 사람의 인격있는 정체성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체험으로 우주에 반응한 것은, 이처럼 **지존자**가 신성하게 겪은 체험의 일부를 이룬다.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진보하는 인격은, 여러 우주에서 상승하는 수준을 통하여 지나갈 때, 실체화된 실체의 흔적을 남긴다. 시간과 공간에서 성장하는 창조물들은, 정신이든지, 영이든지, 또는 에너지든지, 그것들의 영역을 통해서 인격이 진보함으로써 변경된다. 사람이 행동할 때 **지존자**가 반응하며, 이런 진행 사항이 진보라는 사실을 만들어낸다.

에너지, 정신, 및 영의 중대한 회로들은, 상승하는 인격체의 영구 소유물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이런 보살핌은 **지존성**의 일부분으로 영원히 남는다. 인간 지능은, 필사자 체험에서 보조 정신_영들의 율동적인 맥박 안에 거하며, 이 보살핌 안에서 회로화함으로써 생성된 경기장에서 그 지능이 결정하는 것들을 실행한다. 필사자가 죽은 후에, 인간의 자아는 그 보조 회로에서 영구히 떨어져나간다. 이 보조체들은, 인격체들 사이에서 결코 체험을 전달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결정_행동의 비인격 반응을 **칠중 하나님**을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적어도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의 경우에 참말이다.)

영적 회로의 경우에도 그런데: 사람은 여러 우주를 거쳐 상승하면서 이 회로들을 활용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원한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회로들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영적 사역을 베푸는 이 회로들은, **진리의 영**이든지, **거룩한 영**이든지, 또는 연방우주 영 현존들이든지, 상승하는 인격체 안에서 떠오르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하며, 이런 가치는 **칠중 하나님**을 거쳐서 **지존자**에게 충실히 전달된다.

subsequently, wh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becomes allied in some new way with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by a technique of experience known as *finaliter transcendation*. Such finaliters thus become acceptable candidates for experiential recognition as personalities of God the Supreme. And when these mortal intellects in the unrevealed future assignment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ttain the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such dual minds will become triune. These two attuned minds, the human and the divine, will become glorified in union with the experiential mind of the then actualized Supreme Being.

117:5.4 (1286.2) In the eternal future, God the Supreme will be actualized — creatively expressed and spiritually portrayed — in the spiritualized mind, the immortal soul, of ascendant man, even as the Universal Father was so revealed in the earth life of Jesus.

117:5.5 (1286.3) Man does not unite with the Supreme and submerge his personal identity, but the universe repercussions of the experience of all men do thus form a part of the divine experiencing of the Supreme. “The act is ours, the consequences God’s.”

117:5.6 (1286.4) The progressing personality leaves a trail of actualized reality as it passes through the ascending levels of the universes. Be they mind, spirit, or energy, the growing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modified by the progression of personality through their domains. When man acts, the Supreme reacts, and this transaction constitutes the fact of progression.

117:5.7 (1286.5) The great circuits of energy, mind, and spirit are never the permanent possessions of ascending personality; these ministries remain forever a part of Supremacy. In the mortal experience the human intellect resides in the rhythmic pulsation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nd effects its decisions within the arena produced by encirclement within this ministry. Upon mortal death the human self is everlastingly divorced from the adjutant circuit. While these adjutants never seem to transmit experience from one personality to another, they can and do transmit the impersonal repercussions of decision-action through God the Sevenfold to God the Supreme. (At least this is true of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117:5.8 (1286.6) And so it is with the spiritual circuits: Man utilizes these in his ascent through the universes, but he never possesses them as a part of his eternal personality. But these circuits of spiritual ministry, whether Spirit of Truth, Holy Spirit, or superuniverse spirit presences, are receptive and reactive to the emerging values in ascending personality, and these values are faithfully transmitted through the Sevenfold to the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 같은 그런 영적 영향은 지방우주에서 베푸는 보살핌이지만, 그들의 안내는 주어진 한 지방 창조물의 지리적 한계에 완전히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갈 때, 물질 세계와 모른시아 세계의 철학적 미로{迷路}를 통과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안내해 온, **진리의 영**의 사역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상승하는 동안 위기 때마다 항상:“이것이 그 길이라”고 말하면서 **낙원** 순례자를 확실히 지도한다. 네가 지방우주 영역을 떠나게 될 때, 너는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영이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연방우주 반사성이라는 대비책을 통해서, **낙원**으로 상승하는 여정에 **낙원**에서 증여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로하고 지시하는 영이 계속 너를 안내할 것이다.

시공우주를 보살피는 이런 여러 겹의 회로가 어떻게 **지존자** 안에서 진화 체험의 의미, 가치, 및 사실을 등록할까? 우리가 정확히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낙원**에서 기원된 **최상급 창조주**들의 인격자들을 통해서 이런 등록이 이뤄진다고 믿는데, 그 인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이 회로들을 직접 증여했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정신_체험 축적은, 그들이 물리적 수준의 지능을 보살피는 동안, **신성한 사역자**의 지방우주 체험의 일부분이며, 축적된 것들은 이 **창조적 영**을 통해 **지존성**의 정신 속에 등록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필사자가 **진리의 영** 및 **거룩한 영**을 체험하는 것은, **지존성**의 인격자 속에 비슷한 방법으로 등록되는 것 같다.

사람과 **조울사**의 체험조차,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 반응을 얻어야만 되는데, **조울사**들은 체험하게 될 때 **지존자**와 비슷하며, **지존자** 안에서 그런 체험을 얻을 선재{先在}하는 가능성으로부터, 필사적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창시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창조의 다양한 체험은 **지존성**의 진화의 일부가 된다. **아버지**께로 상승하는 동안, 피조물은 유한한 세계의 질{質}과 양{量}을 활용하며;그렇게 이용해서 생기는 비인격적 결과는, 살아있는 시공우주, 즉 **지존자**의 인격자의 일부로 영구히 남는다.

인격의 소유물로서 사람이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낙원**으로 상승하면서 광우주의 정신 및 영 회로들을 이용한 체험이 성품에 미친 결과다.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체험하며, 이 체험의 의미와 가치는, 유한 수준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영구히 자신의 성품의 한 부분이다. 시공우주에서 도덕적이고 신성하게 영적인 성품은, 진지한 경배로 빛을 받고, 지성적 사랑으로 영

Supreme.

117:5.9 (1286.7) While such spiritual influences as the Holy Spirit and the Spirit of Truth are local universe ministrations, their guidance is not wholly confined to the geographic limitations of a given local creation. As the ascending mortal passes beyond the boundaries of his local universe of origin, he is not entirely deprived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has so constantly taught and guided him through the philosophic mazes of the material and morontial worlds, in every crisis of ascension unfailingly directing the Paradise pilgrim, ever saying: “This is the way.” When you leave the domains of the local universe,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he emerging Supreme Being and through the provisions of superuniverse reflectivity, you will still be guided in your Paradise ascent by the comforting directive spirit of the Paradise bestowal Sons of God.

117:5.10 (1287.1) How do these manifold circuits of cosmic ministry register the meanings, values, and facts of evolutionary experience in the Supreme? We are not exactly certain, but we believe that this registry takes place through the persons of the Supreme Creators of Paradise origin who are the immediate bestowers of these circuits of time and space. The mind-experience accumulations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in their ministry to the physical level of intellect, are a part of the local universe experience of the Divine Minister, and through this Creative Spirit they probably find registry in the mind of Supremacy. Likewise are mortal experiences with the Spirit of Truth and the Holy Spirit probably registered by similar techniques in the person of Supremacy.

117:5.11 (1287.2) Even the experience of man and Adjuster must find echo in the divinity of God the Supreme, for, as the Adjusters experience, they are like the Supreme, and the evolving soul of mortal man is created out of the pre-existent possibility for such experience within the Supreme.

117:5.12 (1287.3) In this manner do the manifold experiences of all creation become a part of the evolution of Supremacy. Creatures merely utilize the qualities and quantities of the finite as they ascend to the Father; the impersonal consequences of such utilization remain forever a part of the living cosmos, the Supreme person.

117:5.13 (1287.4) What man himself takes with him as a personality possession are the character consequences of the experience of having used the mind and spirit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in his Paradise ascent. When man decides, and when he consummates this decision in action, man experiences, and the meanings and the values of this experience are forever a part of his eternal character on all levels, from the finite to the

화롭게 되며, 형제에게 봉사함으로 완성된 개인적 결정을 피조물이 축적한 자산을 가리킨다.

진화하는 **지존자**는, 유한한 피조물이 온갖 우주와 접촉한 제한된 체험보다 더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결국 보완해줄 것이다. 피조물은 **낙원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진화로 얻은 그들의 정신은 유한하므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아버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체험이 **지존자** 안에 등록돼 있고 **지존자**의 일부분이므로, 모든 피조물이 유한한 실존의 최종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우주 발전 전체가, 실제적인 신성 현존이신 **지존자 하나님**께 그들이 도달할 수 있게 만든 후에, 그렇게 접촉한 사실에 내재적인, 전체 체험과의 접촉이 생긴다. 시간의 유한성은 그 속에 영원성의 씨앗을 간직하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진화가 충만하게 진행되고 시공우주의 성장 능력이 다 소모되면, 유한계 총체는 **궁극자**로서의 **아버지**를 찾아서, 영원한 생애의 유한절대 국면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6. 지존자를 탐구함

우리는 우주들에서 **지존자**를 찾지만, 그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는 모든 사물과 존재, 즉 활동하는 것과 정지된 것들 안에 있는 존재인 동시에 밖에 있는 존재다. 그는 신비 속에 있음으로 인해 식별될 수 없으나,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다.” **전능한 지존자**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의 형태, 즉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의 원형(原型)이다.” **지존자**는 너희의 우주 고향이며, 너희가 그를 발견할 때, 이는 마치 고향에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체험하는 부모이며, 인간의 체험 속에서도 그렇듯이, 신성한 부모로서 체험하면서 성장해 왔다. 그가 너희를 아는 것은, 그가 창조자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네 정신 속에 **지존자**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신성한 **아버지**인 것처럼, **지존자**는 너희의 신성한 **어머니**요, 그분 안에서 너희는 우주의 피조물로서 사는 동안 내내 양육 받는다. “**지존자**는 얼마나 보편적인지!—그는 사방에 존재하신다. 무한한 창조된 사물은 생명을 위해서 그의 현존에 의존하며, 어떤 것도 거부되지 않는다.”

미가엘과 **네바돈**의 관계는, **지존자**와 유한한 시공우주의 관계와 같으며; 그의 **신격**은,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위대한 통로이고, 사랑이신 **아버지**를 찾아서 유한한 피조물이 안쪽으로 거쳐 가는 광대한 통로다. 심지어 **사고 조울사**도 그에게 관련되며; 원래의 본성이나

final. Cosmically moral and divinely spiritual character represents the creature's capital accumulation of personal decisions which have been illuminated by sincere worship, glorified by intelligent love, and consummated in brotherly service.

117:5.14 (1287.5) The evolving Supreme will eventually compensate finite creatures for their inability ever to achieve more than limited experience contact with the universe of universes. Creatures can attain the Paradise Father, but their evolutionary minds, being finite, are incapable of really understanding the infinite and absolute Father. But since all creature experiencing registers in, and is a part of, the Supreme, when all creatures attain the final level of finite existence, and after total universe development makes possible their attainment of God the Supreme as an actual divinity presence, then, inherent in the fact of such contact, is contact with total experience. The finite of time contains within itself the seeds of eternity; and we are taught that, when the fullness of evolution witnesses the exhaustion of the capacity for cosmic growth, the total finite will embark upon the absonite phases of the eternal career in quest of the Father as Ultimate.

6. THE QUEST FOR THE SUPREME

117:6.1 (1287.6) We seek the Supreme in the universes, but we find him not. “He is the within and the without of all things and beings, moving and quiescent. Unrecognizable in his mystery, though distant, yet is he near.” The Almighty Supreme is “the form of the yet unformed, the pattern of the yet uncreated.” The Supreme is your universe home, and when you find him, it will be like returning home. He is your experiential parent, and even as in the experience of human beings, so has he grown in the experience of divine parenthood. He knows you because he is creaturelike as well as creatorlike.

117:6.2 (1288.1) If you truly desire to find God, you cannot help having born in your minds the consciousness of the Supreme. As God is your divine Father, so is the Supreme your divine Mother, in whom you are nurtured throughout your lives as universe creatures. “How universal is the Supreme — he is on all sides! The limitless things of creation depend on his presence for life, and none are refused.”

117:6.3 (1288.2) What Michael is to Nebadon, the Supreme is to the finite cosmos; his Deity is the great avenue through which the love of the Father flows outward to all creation, and he is the great avenue through which finite creatures pass inward in their quest of the Father, who is love. Even Thought Adjusters are related to him; in original

신성으로 보면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공간 우주에서 시간세계의 처리사항들을 체험할 때에는 **지존자**와 같게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행위는 시공우주에서 가치가 있으며,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는 어떤 협조하는 세력이 즉각 반응하는 우주 의미가 있는데, 그 세력은 아마 **지존하신 분**의 늘 확장되는 행위의 작용일 것이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정말로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 행위에서 생긴 자손이며, **지존하신 분**, 즉 **우주의 어머니**의 시공우주 반응에서 생긴 자녀다. 성장하는 혼이 지방우주에서 자녀신분으로 지내는 내내,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인격을 지배한다. **신격** 부모의 영향력은, **조율사**와 융합된 후에, 연방우주 생애 동안 더 한결같게 되지만,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영원한 중앙우주를 통과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본성이 점점 더 명백히 드러나는데, **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완결성취 단체**로 들어간 후에, 유한{有限}하게 형태화될 수 있는 한 최고점에 도달한다.

완결성취자를 달성하는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상승하는 자아의 체험적 어머니 특성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 및 **무한한 영**의 정신 현존과 접촉하고 주입됨으로써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광우주에서 완결성취자의 활동 영역에 두루, **지존자**의 숨어있는 어머니 잠재성의 새로운 각성, 체험의 의미를 새로 깨달음, 그리고 전체 상승 생애의 체험적 가치의 새로운 합성이 나타난다. **지존자**가 어머니로서 주는 유전성이, **아버지**의 **조율사** 유전성과 유한한 동시성을 획득하기까지, 여섯째 단계에 있는 완결성취자의 우주 생애에서 이런 자아 실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흥미로운 광우주 활동 기간은, 상승하는, 완전하게 된 필사자의 연속되는 성숙한 생애를 의미한다.

여섯째 단계의 실존이 완성되고, 영 신분의 일곱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체험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성숙하고, 신성을 실현하는 진보하는 시대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완결성취자의 본성에서, 이것은 아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신의 갈등을 마친 것, 즉 상승하는 사람의 **본성**을 유한한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신성한 **조율사** 본성과 협조하는 일을 마친 것과 대등할 것이다. 그런 장엄한 우주 자아는, **어머니 지존자**가 우주에서 키운 영원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낙원 아버지**의 영원한 완결성취자 아들이 되는데, 그 자녀는 창조됐거나 창조되고 있거나 진화하고 있는, 사물 및 존재들에 대한 유한한 경영에 적합한 어떤 활동 또는 이행업무든지, 그 속에 있는 우주들과 인격체들의 **아버지** 및 **어머니**, 두 분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우주 자아다.

nature and divinity they are like the Father, but when they experience the transactions of time in the universes of space, they become like the Supreme.

117:6.4 (1288.3) The act of the creature's choosing to do the will of the Creator is a cosmic value and has a universe meaning which is immediately reacted to by some unrevealed but ubiquitous force of co-ordination, probably the functioning of the ever-enlarging action of the Supreme Being.

117:6.5 (1288.4) The morontia soul of an evolving mortal is really the son of the Adjuster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hild of the cosmic reac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Universal Mother. The mother influence dominates the human personality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childhood of the growing soul. The influence of the Deity parents becomes more equal after the Adjuster fusion and during the superuniverse career, but when the creatures of time begin the traversal of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the Father nature becomes increasingly manifest, attaining its height of finite manifestation upon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admission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17:6.6 (1288.5) In 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finaliter attainment the experiential mother qualities of the ascending self become tremendously affected by contact and infusion with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mind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n, throughout the realms of finaliter activity in the grand universe, there appears a new awakening of the latent mother potential of the Supreme, a new realization of experiential meanings, and a new synthesis of experiential values of the entire ascension career. It appears that this realization of self will continue in the universe careers of the sixth-stage finaliters until the mother inheritance of the Supreme attains to finite synchrony with the Adjuster inheritance of the Father. This intriguing period of grand universe function represents the continuing adult career of the ascendant and perfected mortal.

117:6.7 (1288.6)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stage of existence and the entrance upon the seventh and final stage of spirit status, there will probably ensue the advancing ages of enriching experience, ripening wisdom, and divinity realization. In the nature of the finaliter this will probably equal the completed attainment of the mind struggle for spirit self-realization, the completion of the co-ordination of the ascendant man-nature with the divine Adjuster-nature within the limits of finite possibilities. Such a magnificent universe self thus becomes the eternal finaliter son of the Paradise Father as well as the eternal universe child of the Mother Supreme, a universe self qualified to represent both the Father and Mother of universes and personalities in any

혼이 진화하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즉 **지존하신 분**이 낳은 진화의 아들이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유산(遺産)을 혼으로 의식하게 될 때까지, **신격**과 친족관계라는 이 확신을 신앙으로 얻어야 한다. 인간의 생애 체험은 시공우주 고치인데, 그 속에서 **지존하신 분**의 우주 재능과 **만유의 아버지**의 우주 현존은, (어느 것도 인격이 아닌데) 시간세계의 모론시아 혼을, 그리고 우주 운명 및 영원한 봉사에 속하는 인간적이고 신성한 완결성취자 성품을 진화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 실존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자주 망각한다. 다른 체험들은 그 본성과 내용물 안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피조물이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바로 이 체험은 그 자체로 수용력을 확장시킨다.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인데, 쥐야 할 새롭고 더 큰 사랑을 놀랍게 발견하는 일이 수반된다.

모든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은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사람 자신이 이 사랑을 동료에게 줄 때와 비슷하다. 사랑은 역동적이다. 사랑은 결코 붙잡아둘 수 없으며; 살아있고, 자유롭고, 두근거리게 하고, 항상 움직인다.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서 자기 마음 속에 가둬 둘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사적 사람이 이 사랑을 다시 동료에게 베푸는 동안,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 전함으로써만 그에게 실현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랑의 회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들을 통해서 형제에게 전해지며, 그리하여 **지존자**에게 도달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주하는 **조율사**의 사역으로 인해 필사자인격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들은 이 사랑을 우주의 형제에게 나타내며, 형제로서의 이 애정이 **지존자**의 사랑의 핵심이다.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의 창조 시대에 피조물이 **지존성**에 접근하는 길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

1. **낙원 시민**은 영원한 **섬**에서 **하보나**를 거쳐서 하강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낙원**과 **하보나** 실체의 차이를 목격함으로써, 그리고 **옴** 영들로부터 **창조주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탐구해 발견함으로써, **지존성**을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2. **최상급 창조주**들의 진화 우주들에서 올라오는 시-공간 상승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통일

activity or undertaking pertaining to the finite administration of created, creating, or evolving things and beings.

117:6.8 (1289.1) All soul-evolving humans are literally the evolutionary sons of God the Father and God the Mother, the Supreme Being. But until such time as mortal man becomes soul-conscious of his divine heritage, this assurance of Deity kinship must be faith realized. Human life experience is the cosmic cocoon in which the universe endowments of the Supreme Being and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none of which are personalities) are evolving the morontia soul of time and the human-divine finaliter character of universe destiny and eternal service.

117:6.9 (1289.2) Men all too often forget that God is the greatest experience in human existence. Other experiences are limited in their nature and content, but the experience of God has no limits save those of the creature's comprehension capacity, and this very experience is in itself capacity enlarging. When men search for God, they are searching for everything. When they find God, they have found everything. The search for God is the unstinted bestowal of love attended by amazing discoveries of new and greater love to be bestowed.

117:6.10 (1289.3) All true love is from God, and man receives the divine affection as he himself bestows this love upon his fellows. Love is dynamic. It can never be captured; it is alive, free, thrilling, and always moving. Man can never take the love of the Father and imprison it within his heart. The Father's love can become real to mortal man only by passing through that man's personality as he in turn bestows this love upon his fellows. The great circuit of love is from the Father, through sons to brothers, and hence to the Supreme. The love of the Father appears in the mortal personality by the ministry of the indwelling Adjuster. Such a God-knowing son reveals this love to his universe brethren, and this fraternal affection is the essence of the love of the Supreme.

117:6.11 (1289.4) There is no approach to the Supreme except through experience, and in the current epochs of creation there are only three avenues of creature approach to Supremacy:

117:6.12 (1289.5) 1. The Paradise Citizens descend from the eternal Isle through Havona, where they acquire capacity for Supremacy comprehension through observation of the Paradise-Havona reality differential and by exploratory discovery of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ranging from the Master Spirits to the Creator Sons.

117:6.13 (1289.6) 2. The time-space ascenders coming up from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the

성을 더욱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 **하보나**를 거치면서 **지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3.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에서 내려오는 순례자들,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지존자**를 납득하게 된다. **하보나** 원주민은 선천적으로, 영원한 **섬**의 시민과 진화 우주들의 시민의,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진화하는 피조물에게는,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는 일곱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고, **낙원**으로 상승하는 이 각각의 길은,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신성을 통해서 지나가며; 그런 각 접근법은, **으뜸 영**의 본성을 반영하는 연방우주에서 피조물이 봉사한 결과로, 체험 감수성이 확장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일곱 가지 체험의 전체 총합은, **지존자 하나님**의 실체성과 실제성을 피조물이 의식하는, 현재 알려진 한계다.

유한한 **하나님**을 사람이 발견치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람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 우주의 불완전성도 그렇게 만들며; 심지어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모든 피조물의 미완성조차 **지존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수준에 도달한 어떤 개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아주 먼 훗날, 모든 피조물이 완전성을 보편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동시에 그를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한 피조물로서는 누구도 **지존자 하나님**을 결코 개인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주 시대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과 그 후의 우주 생애는, 너희의 의식 속에서, 모든 체험의 **하나님**이 우주에 현존하시고 시공우주에서 활동하실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영의 열매는, 인간의 체험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존자**의 본질이다.

사람이 언젠가 **지존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사람이 **낙원 신격**의 영과 융합한 결과로 생긴다. **우란시아인**에게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 현존이며; **신비 관찰자**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를 닮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신성한 선물이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을 유한한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불가능한 과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심한다. **조율사**들이 장차 일곱째 단계에 오를 완결성취자들에게 드러낼 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한다. 그리고 이 계시와 유한한 피조물의 관계는, **무한자**의 계시와 절대 존재의 관계와 같을 것이다.

Supreme Creators make close approach to the Supreme in the traversal of Havona as a preliminary to the augmenting appreciation of the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117:6.14 (1289.7) 3. The Havona natives acquire a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through contacts with descending pilgrims from Paradise and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Havona natives are inherently in position to harmonize the essentially different viewpoints of the citizens of the eternal Isle and the citizen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117:6.15 (1290.1) To evolutionary creatures there are seven great approaches to the Universal Father, and each of these Paradise ascensions passes through the divinity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ach such approach is made possible by an enlargement of experience receptivity consequent upon the creature's having served in the superuniverse reflective of the nature of that Master Spirit. The sum total of these seven experiences constitutes the present-known limits of a creature's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and actuality of God the Supreme.

117:6.16 (1290.2) It is not only man's own limitations which prevent him from finding the finite God; it is also the incompleteness of the universe; even the incompleteness of all creatures — past, present, and future — makes the Supreme inaccessible. God the Father can be found by any individual who has attained the divine level of Godlikeness, but God the Supreme will never be personally discovered by any one creature until that far-distant time when, through the universal attainment of perfection, all creatures will simultaneously find him.

117:6.17 (1290.3) Despite the fact that you cannot, in this universe age, personally find him as you can and will find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nevertheless, the Paradise ascent and subsequent universe career will gradually create in your consciousness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e presence and the cosmic action of the God of all experience.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as he is realizable in human experience.

117:6.18 (1290.4) Man's sometime attainment of the Supreme is consequent upon his fusion with the spirit of Paradise Deity. With Urantians this spirit is the Adjuster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ough the Mystery Monitor is from the Father and like the Father, we doubt that even such a divine gift can achieve the impossible task of revealing the nature of the infinite God to a finite creature. We suspect that what the Adjusters will reveal to future seventh-stage finalizers will be the divinity and nature of God the Supreme. And this revelation will be to a finite creature what the revelation of the Infinite would be to an absolute

지존자는 무한하지 않지만, 유한 피조물이 일찍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무한성 전체를 포함할 것이다. **지존자**보다 더 이해한다는 것은 유한보다 크다는 것이다!

체험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의존한다. 오직 실존적 실체만이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보나**와 일곱 연방우주는 최대의 유한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유한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언젠가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 의존할 것이다.

인간 상승자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총 우주에서 체험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재한다. 그러나 이 **지존자**를 발견하는 데 동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만큼, 모든 상승자가 우주에서 최대한 성숙해지기 전에는, 홀로 상승하는 어떤 존재도 결코 **지존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인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상승하는 아들 하나하나를 시공우주의 개인으로 대하신다. 마찬가지로, **지존자**도 인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체험하는 자녀를 하나의 시공우주 총체로 대하신다.

사람은,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지존자**를 탐구해야만 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지존자**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면,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의 우주 실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됨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모든 인격체가 완전하게 된 자아 실현에 도달하고, 또한 우주 전반에 걸친 완전하게 된 균형을 달성한 것은, **지존자**에게 도달한 것과 같으며, 모든 유한한 실체가 미완성의 실존 한계로부터 해방됨을 증거 한다. 모든 유한한 잠재력이 그렇게 소모됨으로써 **지존자**의 완성된 달성이 초래되고, 이것은 바로 **지존하신 분이** 진화로 현실화를 완성한 것이라고 달리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은, 지진이 바위를 갈라놓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지존자**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이 바닥에 있는 흙을 깎아내는 것처럼 서서히 끈기 있게 그를 발견한다.

네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 너는 우주들에서 너의 영적 상승을 일으킨 위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네가 **지존자**를 발견할 때, 너는 **낙원**으로 진보하는 생애의 위대한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필사자도 시공우주를 통과하는 여행에 고독감을 결코 느낄 수 없는데,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가 그 옆에서 함께 걸

being.

117:6.19 (1290.5) The Supreme is not infinite, but he probably embraces all of infinity that a finite creature can ever really comprehend. To understand more than the Supreme is to be more than finite!

117:6.20 (1290.6) All experiential creations are interdependent in their realization of destiny. Only existential reality is self-contained and self-existent. Havona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require each other to achieve the maximum of finite attainment; likewise will they be sometime dependent on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for finite transcendence.

117:6.21 (1290.7) A human ascender can find the Father; God is existential and therefore real, irrespective of the status of experience in the total universe. But no single ascender will ever find the Supreme until all ascenders have reached that maximum universe maturity which qualifies them simultaneously to participate in this discovery.

117:6.22 (1290.8) The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he treats each of his ascending sons as cosmic individuals. The Supreme likewise is no respecter of persons; he treats his experiential children as a single cosmic total.

117:6.23 (1290.9) Man can discover the Father in his heart, but he will have to search for the Supreme in the hearts of all other men; and when all creatures perfectly reveal the love of the Supreme, then will he become a universe actuality to all creatures. And that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 universes will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117:6.24 (1291.1) The attainment of perfected self-realization by all personalities plus the attainment of perfected equilibrium throughout the universes equals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and witnesses the liberation of all finite reality from the limitations of incomplete existence. Such an exhaustion of all finite potentials yields the completed attainment of the Supreme and may be otherwise defined as the completed evolutionar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himself.

117:6.25 (1291.2) Men do not find the Supreme suddenly and spectacularly as an earthquake tears chasms into the rocks, but they find him slowly and patiently as a river quietly wears away the soil beneath.

117:6.26 (1291.3) When you find the Father, you will find the great cause of your spiritual ascent in the universes; when you find the Supreme, you will discover the great result of your career of Paradise progression.

117:6.27 (1291.4) But no God-knowing mortal can ever be lonely in his journey through the cosmos, for he knows that the Father walks beside him each step

어가시고, 한편 그가 거쳐 가는 바로 그 길이 **지존자**의 현존 앞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of the way, while the very way that he is traversing is the presence of the Supreme.

7. 지존자의 미래

모든 유한한 잠재성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모든 진화적 체험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지존자**가 우주들에서 전능한 **신격** 현존으로서 최종적으로 출현할 것을 암시한다. 이런 발전 단계에서, **지존자**는, **영원한 아들이** 그런 것처럼 별개로 인격화되고, **낙원 섬**이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동력화되고, **공동 행위자**가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통합될 것이며, 현재 우주 시대가 절정에 달할 때, 이 모든 것은 **지존성**의 유한한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이 **지존자**의 미래에 대한 전적으로 타당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개념에 내재된 어떤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은, **지존자**가 진화를 완성하기 전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도저히 신격화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바로 이 감독관들은, 빛과 생명에 정착된 우주들에 대해서, 지금도 지존성의 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2. **지존자**의 우주 지위가 완성된 실체성에 도달할 때까지, **지존자**는 **궁극 삼위일체** 안에서 도저히 활동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도 제한적인 실체이며, 너희는 **궁극자**의 **제한된 대리인**들이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

3. **지존자**는 우주의 피조물에게 완벽하게 실체적이지는 않지만, **낙원**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에 이르기까지, 그가 **칠중 신격**에게 매우 실질적이라고 추론함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시간은 유한자의 위쪽 한계에서 초월시간과 결합하는데, 거기서 순서가 얼마나 흐릿해지고 혼합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존자**는 자신의 우주 현존을 이런 초월시간 수준까지 예측하고, 그리고 나서 **예상된 미완성자의 내재성**{內在性}으로서, 이런 미래 예측을 창조된 수준까지 되돌려 반영함으로써, 어느 한도 내에서 미래의 진화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는 인간이 겪는 체험의 경우와 같이, 그런 현상은, 유한한 것과 유한을 초월하는 것이 접촉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관찰될지도 모르며, **사고 조율사**는, 모든 영원성 전반에 걸쳐 사람이 미래에 우주에서 달성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예측한다.

필사 상승자들이 **낙원**의 완결성취자 단체에 받아들여질 때,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에게 맹세하

7. THE FUTURE OF THE SUPREME

117:7.1 (1291.5) The completed realization of all finite potentials equals the completion of the realization of all evolutionary experience. This suggests the final emergence of the Supreme as an almighty Deity presence in the universes. We believe that the Supreme, in this stage of development, will be as discretely personalized as is the Eternal Son, as concretely powerized as is the Isle of Paradise, as completely unified as is the Conjoint Actor, and all of this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finite possibilities of Supremacy at the culmin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117:7.2 (1291.6) While this is an entirely proper concept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we would call attention to certain problems inherent in this concept:

117:7.3 (1291.7) 1.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could hardly be deitized at any stage prior to his completed evolution, and yet these same supervisors even now qualifiedly exercise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concerning the universes settled in light and life.

117:7.4 (1291.8) 2. The Supreme could hardly function in the Trinity Ultimate until he had attained complete actuality of universe status, and yet the Trinity Ultimate is even now a qualified reality, and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117:7.5 (1291.9) 3. The Supreme is not completely real to universe creatures, but there are many reasons for deducing that he is quite real to the Sevenfold Deity, extending from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to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117:7.6 (1291.10) It may be that on the upper limits of the finite, where time conjoins transcended time, there is some sort of blurring and blending of sequence. It may be that the Supreme is able to forecast his universe presence onto these supertime levels and then to a limited degree anticipate future evolution by reflecting this future forecast back to the created levels as the Immanence of the Projected Incomplete. Such phenomena may be observed wherever finite makes contact with superfinite, as in the experiences of human beings who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that are veritable predictions of man's future universe attainments throughout all eternity.

117:7.7 (1292.1) When mortal ascenders are admitted to the finaliter corps of Paradise, they take an oath

고, 이런 충성 맹세를 하면서 이것으로 **지존자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인데, **지존자 하나님**은 모든 유한한 피조 인격이 납득하는 바대로 **삼위일체** 이시다. 나중에,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완결성취자 무리가 활동함에 따라서, 지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되는 그 중대한 시절까지, 그들은 오로지 **낙원**에서 하달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완전하게 된 창조계의 새로운 정부 조직이, **지존자**의 떠오르는 주권을 비로소 반영함에 따라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완결성취자 무리가 이때 그런 새 정부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것을 목격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진화하는 **완결성취 단체**의 통합자로서 진화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존자**가 이런 일곱 단체의 영원한 운명을 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존하신 분은 유한을 초월하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우주에서 형태화 한다:

1.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유한절대 협동.
2.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상호절대 관계.
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공동으로 무한히 참여함,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만족할만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지존자**의 미래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빛과 생명의 지위에 도달한 뒤에, **지존자**와 현재 광우주의 관계가 무엇일지에 관한 많은 추측 역시 있다.

연방우주들의 현재 목표는, **하보나**가 그렇듯이, 그것들의 현재 상태 그대로 그것들의 잠재성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완전함은 물리적 및 영적 달성과 관계되는데, 심지어 경영의 발전, 정부의 발전, 그리고 형제관계의 발전에도 관계된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부조화, 부적응, 및 부적합 가능성이 결국 연방우주들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회로들은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고, 정신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며, 한편 영{靈}은 인격 현존 안에서 정신을 지배하기를 성취했을 것이다.

이런 먼 훗날에, **지존자**의 영 인격자와 **전능자**의 달성된 권능은 대등한 발달을 이룩할 것으로 추측되며, **지존자 정신**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통합될 때, 그 둘은 **지존하신 분**으로서 사실화 되리라고 추측되는데, **지존하신 분**은 우주들에서 완성된 실재성이다--모든 피조 지성체가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창조된 에너지가 반응하고, 모든 영적 실재 안에서 조화되고, 모든 우주 인격체가 체험하게 될 실재성이다.

to the Paradise Trinity, and in taking this oath of allegiance, they are thereby pledging eternal fidelity to God the Supreme, who is the Trinity as comprehended by all finite creature personalities. Subsequently, as the finaliter companies function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they are solely amenable to the mandates of Paradise origin until the eventful times of the settling of local universes in light and life. As the new 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these perfected creations begin to be reflective of the emerging sovereignty of the Supreme, we observe that the outlying finaliter companies then acknowledge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such new governments. It appears that God the Supreme is evolving as the unifier of the evolutionary Corps of the Finality, bu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ternal destiny of these seven corps will be directed by the Supreme as a member of the Ultimate Trinity.

117:7.8 (1292.2) The Supreme Being contains three superfinite possibilities for universe manifestation:

117:7.9 (1292.3) 1. Absonite collaboration in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117:7.10 (1292.4) 2. Coabsolute relationship in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117:7.11 (1292.5) 3. Coinfinite particip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but we have no satisfactory concept as to what this really means.

117:7.12 (1292.6) This is one of the generally accepted hypotheses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but there are also many speculations concerning his relations to the present grand universe subsequent to its attainment of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117:7.13 (1292.7) The present goal of the superuniverses is to become, as they are and within their potentials, perfect, even as is Havona. This perfection pertains to physical and spiritual attainment, even to administrative, governmental, and fraternal development. It is believed that, in the ages to come, the possibilities for disharmony, maladjustment, and misadaptation will be eventually exhausted in the superuniverses. The energy circuits will be in perfect balance and in complete subjugation to mind, while spirit, in the presence of personality, will have achieved the dominance of mind.

117:7.14 (1292.8) It is conjectured that at this far-distant time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and attained power of the Almighty will have achieved co-ordinate development, and that both, as unified in and by the Supreme Mind, will factualize as the Supreme Being, a completed actuality in the universes — an actuality which will be observable by all creature intelligences, reacted to by all created energies, co-ordinated in all spiritual entities, and experienced by all universe

이 개념은 광우주에서 **지존자**가 실제 주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삼위일체** 경영인들이 그의 대리자로서 계속하는 것이 아주 있음직하지만, 일곱 연방우주 사이의 현재 경계선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광우주 전체는 완전하게 된 하나의 총체로서 작용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존자**는 **오르본톤**의 본부 **우버사**에 몸소 거하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시간 창조계의 경영을 지시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추측일 뿐이다. 그래도 분명히, **지존하신**분의 인격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분명히 접촉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어디에나 계신 그의 **신격** 현존은 아마 온갖 우주에 계속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연방우주 시민이 **지존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하보나** 원주민과 **낙원 삼위일체** 사이의 현재 관계와 비슷한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미래 시대에 완전하게 된 광우주는 현재의 상태와 매우 다를 것이다. 공간에서 성단{星團}들을 조직하면서 벌어지는 가슴 떨리는 모험, 확실한 시간 세계에 생명을 심는 일,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조화를, 잠재성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의미로부터 진리를, 그리고 가치로부터 선을 진화시키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시한이 있는 우주들은 유한한 운명을 성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떤 공간에서는 휴식이 있을 것인데, 진화로 완전성을 얻으려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벌인 투쟁으로부터 쉬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쉬지는 않는다! 그들의 투쟁하면서 진화하는 선조{先祖}가, 한때 **지존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에 도전 받았던 것과 똑같이, 분명히, 확실히, 그리고 가차 없이, **궁극자 하나님**이라는 떠오르는 **신격**의 수수께끼는, 정착된 우주들에서 완전하게 된 이 시민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런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서, 피조물의 궁극적 체험에서 드러나는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려는, 매혹적인 유한절대 탐구의 초월적 장관{壯觀}을 보여주려고, 시공우주 운명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활짝 열릴 것이다.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personalities.

117:7.15 (1292.9) This concept implies the actu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the grand universe. It is altogether likely that the present Trinity administrators will continue as his vicegerents, but we believe that the present demarcations between the seven superuniverses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that the entire grand universe will function as a perfected whole.

117:7.16 (1292.10) It is possible that the Supreme may then be personally resident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Orvonton, from which he will direct the administration of the time creations, but this is really only a conjecture. Certainly, though, the personality of the Supreme Being will be definitely contactable at some specific locality, although the ubiquity of his Deity presence will probably continue to permeate the universe of universes. What the relation of the superuniverse citizens of that age will be to the Supreme we do not know, but it may be something like the pres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avona natives and the Paradise Trinity.

117:7.17 (1293.1) The perfected grand universe of those future days will be vastly different from what it is at present. Gone will be the thrilling adventur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galaxies of space, the planting of life on the uncertain worlds of time, and the evolving of harmony out of chaos, beauty out of potentials, truth out of meanings, and goodness out of values. The time universes will have achieved the fulfillment of finite destiny! And perhaps for a space there will be rest, relaxation from the agelong struggle for evolutionary perfection. But not for long! Certainly, surely, and inexorably the enigma of the emerging Deity of God the Ultimate will challenge these perfected citizens of the settled universes just as their struggling evolutionary forebears were once challenged by the quest for God the Supreme. The curtain of cosmic destiny will draw back to reveal the transcendent grandeur of the alluring absonite quest for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on those new and higher levels revealed in the ultimate of creature experience.

117:7.18 (1293.2)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118편. 지존과 궁극--시간과 공간

⇨ 117

유란시아 책

119 ⇨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118편

지존과 궁극--시간과 공간

섹션

소개

1. 시간과 영원
2. 무소부재와 편재
3. 시_공간 관계
4. 1차 및 2차 원인
5. 전능성과 공존가능성
6. 전능성과 만물창조
7. 전지와 예정
8. 통제와 전면통제
9. 우주 장치
10. 섭리의 기능

소개

신격의 여러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버지**는 스스로_존재하는 자이다.
2. **아들**은 공존하는 자이다.
3. **영**은 결합하여_존재하는 자이다.
4. **지존자**는 진화하고_체험하는 자이다.

5. **칠중존재**는 스스로를_분배하는 신성{神性}이다.

6. **궁극자**는 초월적이고_체험하는 자이다.

7. **절대자**는 실존적이고_체험하는 자이다.

칠중 하나님은 **지존자**가 진화로 달성하는 데 필수이며, 한편 **지존자**는 또한 **궁극자**가 궁극에

PAPER 118

SUPREME AND ULTIMATE — TIME AND SPACE

SECTIONS

Introduction

1. Time and Eternity
2. Omnipresence and Ubiquity
3. Time-Space Relationships
4. Primary and Secondary Causation
5. Omnipotence and Compossibility
6. Omnipotence and Omnificence
7. Omniscience and Predestination
8. Control and Overcontrol
9. Universe Mechanisms
10. Functions of Providence

INTRODUCTION

118:0.1 (1294.1) CONCERNING the several natures of Deity, it may be said:

118:0.2 (1294.2) 1. The Father is self-existent self.

118:0.3 (1294.3) 2. The Son is coexistent self.

118:0.4 (1294.4) 3. The Spirit is conjoint-existent self.

118:0.5 (1294.5) 4. The Supreme is evolutionary-experiential self.

118:0.6 (1294.6) 5. The Sevenfold is self-distributive divinity.

118:0.7 (1294.7) 6. The Ultimate is transcendental-experiential self.

118:0.8 (1294.8) 7. The Absolute is existential-experiential self.

118:0.9 (1294.9) While God the Sevenfold is indispensable to the evolutionary attainment of the

출현하는 데 필수다. 그리고 **지존자와 궁극자**, 두 분의 현존은 준절대적이고 파생된 **신격**의 기본 관계를 이루는데, 그들은 운명을 달성하는 데 상호 의존하면서 보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총괄우주에서 모든 창조적 성장의 시작과 완성을 체험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이룬다.

창조적 성장에는 끝이 없지만 언제나 만족스러우며, 범위에서는 끝이 없지만 일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인격을 만족시키는 그 순간들이 때때로 사이에 끼어드는데, 그런 순간은 시공우주에서 성장하고, 우주를 탐구하고, **신격**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동원하는 전주곡으로서 아주 효과 있게 쓰인다.

수학의 영역은 질적 한계에 부딪치지만, 수학은 유한한 정신에게 무한을 숙고하도록 개념의 기초를 제공한다. 심지어 유한한 정신이 납득하기에도, 숫자에는 양적 제한이 없다.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해도, 너희는 항상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그 숫자가 무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무리 여러 번 이런 합산을 반복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한한 연속물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도 합산 할 수 있으며, 이 총합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계{小計}는) 정해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태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충만한 달콤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은 조만간에 새롭고 더 큰 목표를 열망하고 바라며, 성장하는 그런 모험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고 영원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언제까지나 앞으로 닥칠 것이다.

이어지는 각 우주 시대는 그 다음 시공우주 성장 시대로 가는 대기실이며, 각 우주 시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단계에 당면한 운명을 마련해준다. **하보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완성됨이 제한된 창조물이며; **하보나**의 완전함은, 진화하는 연방우주들 속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시공우주의 운명뿐 아니라 진화 이전{以前} 실존의 제한 한계로부터 해방됨을 획득한다.

1. 시간과 영원

신격과 시공우주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모두 납득하는 것이, 사람의 시공우주 적응에 도움 된다. 절대 **신격**은 본성에서 영원하지만, **하나님**들은 영원 속에서 겪는 하나의 체험으로서 시간세계와 연관돼 있다. 진화하는 우주에서 영원은 현세가 계속되는 것이다--곧 영원한 현재다.

필사 피조물의 인격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기법을 통해서, 내주하는 영과 자아를

Supreme, the Supreme is also indispensable to the eventual emergence of the Ultimate. And the dual presence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constitutes the basic association of subabsolute and derived Deity, for they are interdependently complementary in the attainment of destiny.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experiential bridge linking the beginnings and the completions of all creative growth in the master universe.

118:0.10 (1294.10) Creative growth is unending but ever satisfying, endless in extent but always punctuated by those personality-satisfying moments of transient goal attainment which serve so effectively as the mobilization preludes to new adventures in cosmic growth, universe exploration, and Deity attainment.

118:0.11 (1294.11) While the domain of mathematics is beset with qualitative limitations, it does provide the finite mind with a conceptual basis of contemplating infinity. There is no quantitative limitation to numbers, even in the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No matter how large the number conceived, you can always envisage one more being added. And also, you can comprehend that that is short of infinity, for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repeat this addition to number, still always one more can be added.

118:0.12 (1294.12) At the same time, the infinite series can be totaled at any given point, and this total (more properly, a subtotal) provides the fullness of the sweetness of goal attainment for a given person at a given time and status. But sooner or later, this same person begins to hunger and yearn for new and greater goals, and such adventures in growth will be forever forthcoming in the fullness of time and the cycles of eternity.

118:0.13 (1294.13) Each successive universe age is the antechamber of the following era of cosmic growth, and each universe epoch provides immediate destiny for all preceding stages. Havona, in and of itself, is a perfect, but perfection-limited, creation; Havona perfection, expanding out into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finds not only cosmic destiny but also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of pre-evolutionary existence.

1. TIME AND ETERNITY

118:1.1 (1295.1) It is helpful to man's cosmic orientation to attain all possible comprehension of Deity's relation to the cosmos. While absolute Deity is eternal in nature, the Gods are related to time as an experience in eternity.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eternity is temporal everlastingness — the everlasting now.

118:1.2 (1295.2)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creature may eternalize by self-identification with the

동일시함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지를 성별{聖別}하는 것은, 목적이 영원성의 실체임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순간들이 연속돼도 피조물의 목적은 고정됐음을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순간들의 연속이 피조물의 목적에 어떤 변화도 입증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수백만 또는 수억의 순간이 지나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피조물의 목적과 관련해서 숫자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피조물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합쳐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낙원 아버지**가 영원히 봉사할 때, 인간 본성과 **하나님**의 영이 결국 끝없이 하나가 된 영원한 실체가 된다.

주어진 어떤 지능 속에서든지, 시간을 의식하는 단위와 성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간 단위는 하루나 일 년 또는 더 긴 기간이 될 수 있지만, 의식 자체가 인생의 환경을 평가하는 척도이고, 생각하는 지능은 그 척도로 현재에 실존하는 사실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체험, 지혜, 및 판단은, 필사자의 체험에서 시간 단위가 길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인간의 정신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계산할 때, 정신은, 과거의 체험이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려는 목적으로 과거의 체험을 평가한다. 정신이 미래 속으로 손을 뻗을 때, 있음직한 행동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체험과 지혜를 모두 평가했으므로, 인간의 의지는 현재 속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과거와 미래로부터 탄생된 행동 계획이 존재하게 된다.

발달하는 자아가 성숙하는 동안, 과거와 미래가 함께 현재의 참된 의미를 밝게 비춰준다. 자아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것은 체험을 위해 점점 더 먼 과거로 손을 뻗으며, 반면에 그 지혜 예측은 미지의 미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려고 애쓴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아가 과거와 미래로 가급적 더 멀리 손을 뻗을수록, 판단은 순간적인 현재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결정과 행동은 움직이는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한편 과거와 미래의 의미심장한 양상들을 띠기 시작한다.

인내는, 시간 단위가 짧은 그런 필사자들이 발휘하는 것이며; 참된 성숙은, 진정한 이해로 말미암는 관용{寬容}으로 인내를 초월한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체험에 기초를 둔 성숙한 계획은, 미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에 생겨나고 있다.

indwelling spirit through the technique of choosing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Such a consecration of will is tantamount to the realization of eternity—reality of purpose. This means that the purpose of the creature has become fixed with regard to the succession of moments; stated otherwise, that the succession of moments will witness no change in creature purpose. A million or a billion moments makes no difference. Number has ceased to have meaning with regard to the creature's purpose. Thus does creature choice plus God's choice eventuate in the eternal realities of the never-ending union of the spirit of God and the nature of man in the everlasting service of the children of God and of their Paradise Father.

118:1.3 (1295.3)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maturity and the unit of time consciousness in any given intellect. The time unit may be a day, a year, or a longer period, but inevitably it is the criterion by which the conscious self evaluates the circumstances of life, and by which the conceiving intellect measures and evaluates the facts of temporal existence.

118:1.4 (1295.4) Experience, wisdom, and judgment are the concomitants of the lengthening of the time unit in mortal experience. As the human mind reckons backward into the past, it is evaluating past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t to bear on a present situation. As mind reaches out into the future, it is attempting to evaluate the future significance of possible action. And having thus reckoned with both experience and wisdom, the human will exercises judgment-decision in the present, and the plan of action thus born of the past and the future becomes existent.

118:1.5 (1295.5) In the maturity of the developing self, the past and future are brought together to illuminate the true meaning of the present. As the self matures, it reaches further and further back into the past for experience, while its wisdom forecasts seek to penetrate deeper and deeper into the unknown future. And as the conceiving self extends this reach ever further into both past and future, so does judgment become less and less dependent on the momentary present. In this way does decision-action begin to escape from the fetters of the moving present, while it begins to take on the aspects of past-future significance.

118:1.6 (1295.6) Patience is exercised by those mortals whose time units are short; true maturity transcends patience by a forbearance born of real understanding.

118:1.7 (1295.7) To become mature is to live more intensely in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escap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The plans of maturity, founded on past experience, are coming into being in the present in such manner as to enhance the values of the future.

미숙했을 때의 시간 단위는, 현재와 비_현재의--곧 과거와_미래의-- 참된 관계를 현재에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순간 속으로 의미와_가치를 집중시킨다. 성숙했을 때의 시간 단위는 과거_현재_미래의 대등한 관계를 드러내도록 균형 잡혀서, 자아는 비로소 사건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펼쳐지는 광경에서 시간이라는 풍경을 넓어진 시야로 비로소 바라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연속체(連續體)가 아니겠느냐고 짐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속체의 조각들을 시간이라고 부른다.

무한자와 절대자의 수준에서는, 현재의 순간은 미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도 포함한다. **자존자**는 또한 과거의 **자존자** 및 미래의 **자존자**를 의미한다. 이런 표현은 영원성과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 개념이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수준에서는, 잠재하는 실체는 실재하는 실체와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오직 유한 수준에서 시간 제약을 받는 피조물에게만, 그렇게 방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정을 내린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미 **낙원** 완결성취자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는, 내주하는 **사고 조울사**를 통해서, 이처럼 자각하는 데 제한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물 같은 수준으로부터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실존으로 올라가는 피조물이 문제와 씨름하는 현재의 투쟁마다 다 아실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

2. 무소부재와 편재

신격의 무소부재(無所不在)를 신(神)의 편재(遍在)의 궁극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유의 아버지**가 시_공간에 무소부재하심 및 시간과_공간을 초월해서 편재하심을, **지존자**, **궁극자**, 및 **절대자**가,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는 **만유의 아버지**의 보편적 및 절대적 현존으로서 보정하고,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것이, **만유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신격**의 무소부재하심은 매우 종종 공간과 관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사자 및 모론시아 상승자로서, 너희는 **칠중 하나님**이 베푸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식별한다. 너희는 **하보나**를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발견한다. **낙원**에서 너희는 그가 한 인격체이심을 발견하며, 그다음에 완결성취자로서 너희는 곧 그가 **궁극자**이심을 알고자 애쓸 것이다. 완결성취자이므로, **궁극자**에 도달한 후에 추구할 과정이 오직 하나 있는 듯이 보이며, 이는 **절대자**를 탐구하기 시작함일 것이다. 어떤 완결성취자든지, 자신이 최고의 궁극적 상승을 종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격 절대자**에 도달할 것을 반신반의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완결성취자는, 비록 자신이 **절대자** 하

118:1.8 (1295.8) The time unit of immaturity concentrates meaning-value into the present moment in such a way as to divorce the present of its true relationship to the not-present — the past-future. The time unit of maturity is proportioned so to reveal the co-ordinate relationship of past-present-future that the self begins to gain insight into the wholeness of events, begins to view the landscape of time from the panoramic perspective of broadened horizons, begins perhaps to suspect the nonbeginning, nonending eternal continuum, the fragments of which are called time.

118:1.9 (1296.1) On the levels of the infinite and the absolute the moment of the present contains all of the past as well as all of the future. I AM signifies also I WAS and I WILL BE. And this represents our best concept of eternity and the eternal.

118:1.10 (1296.2) On the absolute and eternal level, potential reality is just as meaningful as actual reality. Only on the finite level and to time-bound creatures does there appear to be such a vast difference. To God, as absolute, an ascending mortal who has made the eternal decision is already a Paradise finaliter. But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s not thus limited in awareness but can also know of, and participate in, every temporal struggle with the problems of the creature ascent from animallike to Godlike levels of existence.

2. OMNIPRESENCE AND UBIQUITY

118:2.1 (1296.3) The ubiquity of Deity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ultimacy of the divine omnipresence. It is volitional with the Universal Father that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should compensate, co-ordinate, and unify his time-space ubiquity and his time-space-transcended omnipresence with his timeless and spaceless universal and absolute presence. And you should remember that, while Deity ubiquity may be so often space associated, it is not necessarily time conditioned.

118:2.2 (1296.4) As mortal and morontia ascenders you progressively discern God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Through Havona you discover God the Supreme. On Paradise you find him as a person, and then as finaliters you will presently attempt to know him as Ultimate. Being finaliters, there would seem to be but one course to pursue after having attained the Ultimate, and that would be to begin the quest of the Absolute. No finaliter will be disturbed by the uncertainties of the attainment of the Deity Absolute since at the end of the supreme and ultimate ascensions he encountered God the Father. Such finaliters will no doubt believe that, even if they should be

나님을 성공적으로 발견해야 함에도, 바로 그 **하나님**, 즉 아주 거의 무한하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낙원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뿐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인격체들의 **최종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주들의 **시초 조상**을 드러낼 것이다.

신격이 시_공간에 편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지존자 하나님**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존자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신{神}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창조주**의 영적 현존과, 물질로 나타난 창조 사이에는, 무소부재에 걸맞은--즉 진화하는 **신격**이 우주에서 출현하는-- 방대한 영역이 있다.

지존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을 직접 통제하기를 영원히 계속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신격**의 경영이 **궁극자**의 전면통제 아래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런 경우에 **궁극자 하나님**은, **전능한 지존자**의 경영 기능에 관계되는 초월시간 및 초월된 공간에 전면통제를 행사하는 초월 **전능자**(곧 **절대권자**)로서, 시간세계의 우주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필사자의 정신도 우리처럼 질문할지 모르겠다: 광우주에서 경영 권세를 갖게 되는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가 **궁극자 하나님**의 증가된 형태화에 수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외부 공간의 가상되는 우주들에서 **궁극자 하나님**이 출현할 때에도, 비슷하게 뒤이어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가 늘어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successful in finding God the Absolute, they would only be discovering the same God, the Paradise Father manifesting himself on more nearly infinite and universal levels. Undoubtedly the attainment of God in absolute would reveal the Primal Ancestor of universes as well as the Final Father of personalities.

118:2.3 (1296.5) God the Supreme may not be a demonstration of the time-space omnipresence of Deity, but he is literally a manifestation of divine ubiquity. Between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Creator and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creation there exists a vast domain of the ubiquitous *becoming* — the universe emergence of evolutionary Deity.

118:2.4 (1296.6) If God the Supreme ever assumes direct control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e are confident such a Deity administration will function under the overcontrol of the Ultimate. In such an event God the Ultimate would begin to become manifest to the universes of time as the transcendental Almighty (the Omnipotent) exercising the overcontrol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Almighty Supreme.

118:2.5 (1297.1) The mortal mind may ask, even as we do: If the evolution of God the Supreme to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grand universe is attended by augmented manifestations of God the Ultimate, will a corresponding emergence of God the Ultimate in the postulated universes of outer space be attended by similar and enhanced revelations of God the Absolute? But we really do not know.

3. 시_공간 관계

신격은 오직 무소부재하심으로써, 시_공간에 형태화된 것들을, 유한자가 마음에 품는 것들에 일치시킬 수 있는데,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인 반면, 공간은 관련된 지점들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는 분석함으로 시간을 감지하고, 종합함으로 공간을 감지한다. 너희는 인격의 종합하는 통찰력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킨다. 동물 세계 전체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 시_공간 감지력을 소유한다. 동물에게는 동작이 의미를 갖지만, 동작은 오직 인격 신분의 피조물에게만 가치를 드러낸다.

사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진리는 시간을 초월한다. 너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 *이*면 진리일수록, 과거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미래를 더 많이 납득할 수 있다.

진리는 흔들릴 수 없지만--곧 일시적인 모든 변천과는 영원히 무관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죽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는데, 항상 활기 넘치고 융통성 있다--눈부시게 생생하다. 그러나 진리가 사실과 연결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 양쪽이 그 의미를

3. TIME-SPACE RELATIONSHIPS

118:3.1 (1297.2) Only by ubiquity could Deity unify time-space manifestations to the finite conception, for time is a succession of instants while space is a system of associated points. You do, after all, perceive time by analysis and space by synthesis. You co-ordinate and associate these two dissimilar conceptions by the integrating insight of personality. Of all the animal world only man possesses this time-space perceptibility. To an animal, motion has a meaning, but motion exhibits value only to a creature of personality status.

118:3.2 (1297.3) Things are time conditioned, but truth is timeless. The more truth you know, the more truth you are, the more of the past you can understand and of the future you can comprehend.

118:3.3 (1297.4) Truth is inconcussible — forever exempt from all transient vicissitudes, albeit never dead and formal, always vibrant and adaptable — radiantly alive. But when truth becomes linked with fact, then both time and space condition its

결정하고 그 가치를 서로 관련시킨다. 사실과 결합된 그런 진리의 실체는 개념이 되며, 따라서 상대적 시공우주 실체의 영역으로 지위가 떨어진다.

창조주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피조물의 사실 체험과 연결됨으로써, 결국 **지존자의** 새롭게 떠오르는 가치가 된다. **지존자** 개념은, 신성하고 변함없는 상부{上部} 세계와, 유한하고 영원히 변화하는 하부{下部} 세계를 조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공간은 비절대적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대성에 가깝다. 공간은 절대로 궁극적인 듯하다. 우리가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이해하기에 실제로 어려운 점은, 물체들이 공간 속에 있지만 공간은 또한 바로 그 물체들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간에 관하여 절대적인 것이 많지만, 그것은 그 공간이 절대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공간이 결국 모든 물질 몸체의 소유물이라고 너희가 추측하고자 한다면,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 물체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것은 또한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 전부, 심지어 그런 움직이는 물체 속에 있고 그 물체에 속한 공간도 동반한다.

실체의 모든 원형{原型}은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차지하지만, 영{靈} 원형은 공간과 갖는 관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영 원형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밀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주된 난제{難題}는 관념의 원형과 관계이다. 우리는 정신 영역에 들어갈 때, 여러 수수께끼에 부딪치게 된다. 관념의 원형이--곧 실체가-- 공간을 차지할까?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관념의 원형이 공간을 담지 않는다는 점은 확신한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확실치 않을 것이다.

4. 1차 및 2차 원인

필사적 사람이 겪는 신학적 문제와 형이상학의 진퇴양난 가운데 많은 것은, 사람이 **신격**의 인격을 잘못된_위치에 놓고, 그 결과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속성들을 하위 **신성** 및 진화하는 **신격**에 줄기차게 할당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참된 **최초 원인**이 정말로 있는 한편, 대등하고 종속적인, 부수적인 동시에 2차적인 일련의 원인들 또한 있다는 사실이다.

1차 원인과 2차 원인의 중대한 차이점은, 1차 원인들이 원초적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선행{先行}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요소든지 전혀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원인은 앞에 있었던 다른 원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과를 반드시 변함없이 드러낸다.

meanings and correlate its values. Such realities of truth wedded to fact become concepts and are accordingly relegated to the domain of relative cosmic realities.

118:3.4 (1297.5) The linking of the absolute and eternal truth of the Creator with the factual experience of the finite and temporal creature eventuates a new and emerging value of the Supreme. The concept of the Supreme is essential to the co-ordination of the divine and unchanging overworld with the finite and ever-changing underworld.

118:3.5 (1297.6) Space comes the nearest of all nonabsolute things to being absolute. Space is apparently absolutely ultimate. The real difficulty we have in understanding space on the material level is due to the fact that, while material bodies exist in space, space also exists in these same material bodies. While there is much about space that is absolute, that does not mean that space is absolute.

118:3.6 (1297.7) It may help to an understanding of space relationships if you would conjecture that, relatively speaking, space is after all a property of all material bodies. Hence, when a body moves through space, it also takes all its properties with it, even the space which is in and of such a moving body.

118:3.7 (1297.8) All patterns of reality occupy space on the material levels, but spirit patterns only exist in relation to space; they do not occupy or displace space, neither do they contain it. But to us the master riddle of space pertains to the pattern of an idea. When we enter the mind domain, we encounter many a puzzle. Does the pattern — the reality — of an idea occupy space? We really do not know, albeit we are sure that an idea pattern does not contain space. But it would hardly be safe to postulate that the immaterial is always nonspatial.

4. PRIMARY AND SECONDARY CAUSATION

118:4.1 (1298.1) Many of the theologic difficulties and the metaphysical dilemmas of mortal man are due to man's mislocation of Deity personality and consequent assignment of infinite and absolute attributes to subordinate Divinity and to evolutionary Deity. You must not forget that, while there is indeed a true First Cause, there are also a host of co-ordinate and subordinate causes, both associate and secondary causes.

118:4.2 (1298.2) The vital distinction between first causes and second causes is that first causes produce original effects which are free from inheritance of any factor derived from any antecedent causation. Secondary causes yield effects which invariably exhibit inheritance from

무조건 절대자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순전히 정적{靜的}인 잠재력은, **낙원 삼위일체**의 행위로 생기는 **신격 절대자**의 인과관계에 반응한다. **우주 절대자**의 현존 앞에서, 이런 원인의_씨를_받은 정적 잠재성은 곧 활기를 띠고, 어떤 초월 대행자들의 영향에 민감해지는데, 이 대행자들의 행동은 활성화된 이 잠재성을, 발전할 수 있는 참된 우주 가능성, 즉 실현된 성장 수용력을 가진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런 성숙된 잠재성을 기반으로, 광우주의 창조자들과 통제관들은, 시공우주의 진화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 드라마를 상연한다.

존재하는 것들을 무시하면, 원인의 기본 구성은 삼중적이다. 원인이 현재 우주 시대에서 작용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의 유한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정적 잠재성의 활성화. **신격 절대자**의 행위로 **우주 절대자** 안에서 운명이 확립되는 것인데,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게 작용하며, **낙원 삼위일체**가 의도하는 명령의 결과로 작용한다.

2. 우주 수용력이 결말에 이름. 이것은, 확립적인 잠재성을, 분리되고 규정된 여러 계획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 신격** 그리고 초월 수준의 다양한 대행자들의 행위다. 그런 행위는 총괄우주 전체의 미래 필요사항을 완전히 예상해서 이뤄진다. 잠재성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총괄우주 설계자**들은, 우주들에 대한 **신격**의 개념을 틀림없이 구현{具現}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의 계획의 범위가 궁극적으로 공간에서 개념상 총괄우주 바깥둘레로 크기가 제한될 듯하지만, **계획**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에 달리 제약 받지 않는다.

3. 우주에 실재하는 것들의 창조와 진화. 수용력을_산출하는 **궁극 신격**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한 시공우주 위에, 성숙한 잠재성을 체험적 실재로 시간 속에서 전환시키려고 **최상급 창조주**들이 작용한다. 총괄우주 안에서, 잠재하는 실체의 현실화는 모두 궁극의 발전 수용력에 제한을 받으며, 최종 출현 단계에서 시_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낙원**에서 나오는 **창조주 아들**들은, 실제로는, 시공우주의 의미로 볼 때, **변화시킬 힘이 있는 창조자**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창조자라는 사람의 개념을, 어떤 면에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창조할 수 있고, 또한 창조한다.

other and preceding causation.

118:4.3 (1298.3) The purely static potentials inherent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re reactive to those causations of the Deity Absolute which are produced by the a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se causative-impregnated static potentials forthwith become active and responsive to the influence of certain transcendental agencies whose actions result in the transmutation of these activated potentials to the status of true universe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actualized capacities for growth. It is upon such matured potentials that the creators and 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enact the never-ending drama of cosmic evolution.

118:4.4 (1298.4) Causation, disregarding existentials, is threefold in its basic constitution. As it operates in this universe age and concerning the finite level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may be conceived as follows:

118:4.5 (1298.5) 1. *Activation of static potentials.* The establishment of destiny in the Universal Absolute by the actions of the Deity Absolute, operating in and upo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in consequence of the volitional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118:4.6 (1298.6) 2. *Eventuation of universe capacities.* This involves the transformation of undifferentiated potentials into segregated and defined plans. This is the act of the Ultimacy of Deity and of the manifold agencies of the transcendental level. Such acts are in perfect anticipation of the future needs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It is in connection with the segregation of potentials that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exist as the veritable embodiments of the Deity concept of the universes. Their plans appear to be ultimately space limited in extent by the concept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as *plans* they are not otherwise conditioned by time or space.

118:4.7 (1298.7) 3. *Creation and evolution of universe actuals.* It is upon a cosmos impregnated by the capacity-producing presence of the Ultimacy of Deity that the Supreme Creators operate to effect the time transmutations of matured potentials into experiential actuals. Within the master universe all actualization of potential reality is limited by ultimate capacity for development and is time-space conditioned in the final stages of emergence. The Creator Sons going out from Paradise are, in actuality, *transformative* creators in the cosmic sense. But this in no manner invalidates man's concept of them as creators; from the finite viewpoint they certainly can and do create.

5. 전능성과 공존가능성

5. OMNIPOTENCE AND COMPOSSIBILITY

신격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시·공간 틀 속에서 그리고 필사자가 납득하는 지적{知的} 기준점으로 볼 때, 무한한 **하나님**조차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악{惡}을 창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답지 않은 것을 행하실 수 없다. 철학 용어의 그런 모순은 비실재{非實在}에 해당하며, 아무 것도 그렇게 창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격의 생김새는, **하나님**을 닮은 동시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모순되지 않음을 신성한 권능에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전능성은 어떤 본성을 갖는 물체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 및 존재의 본성을 기원시킨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무한자**의 뜻과 명령에 반응하여 영원성의 전경{全景}이 펼쳐짐에 따라서, 피조물, 심지어 사람도 운명의 완결성 실현에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리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이것은 육신 속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사람과 **하나님**이 동업관계에 들어갈 때, 그런 동업관계의 미래 가능성에 어떤 제한도 부여할 수 없다. 사람이 영원히 진보하면서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동업자임을 깨달을 때, 내주하는 **아버지** 현존과 융합할 때, 그는 영적인 면에서 시간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만유의 아버지**를 탐구하면서 영원히 진보하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

필사자의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로, 그 다음에는 가치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 **창조주**의 의식은, 사고와 가치로부터, 말씀과 의미를 거쳐서, 행동하는 사실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실존적 무한에 내재된 무조건적 통일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행동하셔야 한다. **신격**은, 원형{原型} 우주, 완전한 인격체들, 모든 하위{下位}신격 창조계가 얻으려고 애쓰는 원래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항상 공급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도록, 반드시 먼저 사람을 발견하셔야 한다. 우주의 아들신분,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관계가 있기 전에, **만유의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 한다.

6. 전능성과 만물창조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시지는 않는다--즉 이뤄지는 모든 일을 몸소 행하시지는 않는다. 전능성은 **전능한 지존자와 지존하신 분**의 능력 잠재성을 포함하지만, **지존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행동은 **무한자 하나님**의 직접 행위가 아니다.

근원적 **신격**이 만물을 창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를 이뤄 협력하는 다양한 다른 계층의 창조 보좌관들은 물론이고, 거의 백만에 달하는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전체 우주에서, 원인 없는 **원인**은

118:5.1 (1299.1) The omnipotence of Deity does not imply the power to do the nondoable. Within the time-space frame and from the intellectual reference point of mortal comprehension, even the infinite God cannot create square circles or produce evil that is inherently good. God cannot do the ungodlike thing. Such a contradiction of philosophic terms is the equivalent of nonentity and implies that nothing is thus created. A personality trait cannot at the same time be Godlike and ungodlike. Compossibility is innate in divine power. And all of this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omnipotence not only creates things with a nature but also gives origin to the nature of all things and beings.

118:5.2 (1299.2) In the beginning the Father does all, but as the panorama of eternity unfolds in response to the will and mandates of the Infinite, it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that creatures, even men, are to become God's partners in the realization of finality of destiny. And this is true even in the life in the flesh; when man and God enter into partnership, no limitation can be placed upon the future possibilities of such a partnership. When man realizes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his partner in eternal progression, when he fuses with the indwelling Father presence, he has, in spirit, broken the fetters of time and has already entered upon the progressions of eternity in the quest for the Universal Father.

118:5.3 (1299.3) Mortal consciousness proceeds from the fact, to the meaning, and then to the value. Creator consciousness proceeds from the thought-value, through the word-meaning, to the fact of action. Always must God act to break the deadlock of the unqualified unity inherent in existential infinity. Always must Deity provide the pattern universe, the perfect personalities, the original truth, beauty, and goodness for which all subdeity creations strive. Always must God first find man that man may later find God. Always must there be a Universal Father before there can ever be universal sonship and consequent universal brotherhood.

6. OMNIPOTENCE AND OMNIFICENCE

118:6.1 (1299.4) God is truly omnipotent, but he is not omnificent — he does not personally do all that is done. Omnipotence embraces the power-potential of the Almighty Supreme and the Supreme Being, but the volitional acts of God the Supreme are not the personal doings of God the Infinite.

118:6.2 (1299.5) To advocate the omnificence of primal Deity would be equal to disenfranchising well-nigh a million Creator Sons of Paradise, not to mention the innumerable hosts of various other orders of concurring creative assistants. There is but one

하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유일한 **최초의 위대한 근원 및 중심**에서 파생된다. 그리고 이런 원리 중에 아무 것도, 광대한 우주에 두루 산재한, 무수한 **신격**의 자녀들의 자유의지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국지적 틀 안에서 보면, 의지작용이 마치 원인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독창적이고 원초적이며 절대적인 **최초 원인**들과 갖는 관계를 확립하는, 물려받은 요소를 반드시 나타내게 돼있다.

모든 의지작용은 상대적이다. 발생적인 의미에서, **아버지_자존자**만이 의지작용의 완결성을 소유하며; 절대적 의미에서는, 오직 **아버지, 아들**, 및 **영**만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의지작용의 특권을 누리신다. 필사적 사람은, 자유의지, 즉 선택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그런 선택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한 수준에서, 그리고 선택하는 인격체의 운명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최종적이다.

절대자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의지작용은 선택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인격 안에 설정된 제한에 부딪친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외에, 그는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우주에서 상승 여정에 참여하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신성한 뜻이 이 시점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필사자의 인생에서, 서로 다른 행위의 경로들이 계속 열리고 닫히며, 선택 가능한 시절 동안에 인간의 인격은 이런 많은 행동 과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정한다. 현세의 의지작용은 시간과 연결되며,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영적 의지작용은, 시간의 연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데 성공했으므로, 시간의 족쇄로부터 해방을 맛보기 시작했으며, 이는 영적 의지작용이 **하나님** 뜻에 스스로_맞추기 때문이다.

선택 행위인 의지작용은, 이전의 더 높은 선택에 반응하여 실체화 된 우주 틀 안에서 작용해야 한다. 인간 의지의 전체 범위는, 한 항목 외에는 엄격히 유한하고_제한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선택할 때, 그런 선택은 유한을 초월하며; 이 선택이 또한 유한절대를 초월하는지 여부는, 영원만이 밝힐 수 있다.

신격이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시공우주 시민으로서 겪는 체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 즉 **낙원**을 향한 긴 여행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신격**이 만물을 창조한다는 오류를 수락하는 것은, 범신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착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uncaused Cause in the whole universe. All other causes are derivatives of this on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none of this philosophy does any violence to the free-willness of the myriads of the children of Deity scattered through a vast universe.

118:6.3 (1299.6) Within a local frame, volition may appear to function as an uncaused cause, but it unfailingly exhibits inheritance factors which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unique, original, and absolute First Causes.

118:6.4 (1299.7) All volition is relative. In the originating sense, only the Father-I AM possesses finality of volition; in the absolute sense, only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exhibit the prerogatives of volition unconditioned by time and unlimited by space. Mortal man is endowed with free will, the power of choice, and though such choosing is not absolute, nevertheless, it is relatively final on the finite level and concerning the destiny of the choosing personality.

118:6.5 (1300.1) Volition on any level short of the absolute encounters limitations which are constitutive in the very personality exercising the power of choice. Man cannot choose beyond the range of that which is choosable. He cannot, for instance, choose to be other than a human being except that he can elect to become more than a man; he can choose to embark upon the voyage of universe ascension, but this is because the human choice and the divine will happen to be coincident upon this point. And what a son desires and the Father wills will certainly come to pass.

118:6.6 (1300.2) In the mortal life, paths of differential conduct are continually opening and closing, and during the times when choice is possible the human personality is constantly deciding between these many courses of action. Temporal volition is linked to time, and it must await the passing of time to find opportunity for expression. Spiritual volition has begun to taste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time, having achieved partial escape from time sequence, and that is because spiritual volition is self-identifying with the will of God.

118:6.7 (1300.3) Volition, the act of choosing, must function within the universe frame which has actualized in response to higher and prior choosing. The entire range of human will is strictly finite-limited except in one particular: When man chooses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such a choice is superfinite; only eternity can disclose whether this choice is also superabsonite.

118:6.8 (1300.4) To recognize Deity omnipotence is to enjoy security in your experience of cosmic citizenship, to possess assurance of safety in the long journey to Paradise. But to accept the fallacy of omniscience is to embrace the colossal error of pantheism.

7. 전지와 예정

광우주에서, **창조주** 의지와 피조물 의지의 기능은, **오름 설계자**들에 확정한 한계 내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최대 한계를 이처럼 미리 설정한 것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피조물 의지의 주권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또한 궁극적인 선견(先見)도 --모든 유한한 선택을 충분히 승인하면서-- 유한한 의지작용을 파괴하지도 않는다. 성숙하고 앞을 내다보는 인간은, 자신보다 어린 어떤 동역자의 결정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이런 선견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릴 자율성과 순수성을 조금도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들은 미성숙한 의지의 행동 범위를 현명하게 제한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런 규정된 제한 내에서 참된 의지다.

모든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선택을 최고로 서로 관련시키는 것조차, 그런 선택이 확실함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미리 설정된 시공우주의 동향을 나타내며, 모든 실체가 체험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맡기로 선택하든지 또는 안하든지 하는 그 의지적 존재들에게 선견이 있음을 암시한다.

유한한 선택에서 생기는 오류는 시간에 묶이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 오류는 시간 속에서만,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현존 안에 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지존자**의 미완성 이외에는) 자유의지로 실체와 접촉함으로써, 미숙한 피조물이 우주에서 진보하기 위해 부여받아야만 할 어떤 선택 범위가 있음을 가리킨다.

시간-제약을 받는 공간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은, 유한자의 의지가 현세에 자유를--심지어 방종까지도-- 가졌음을 분명히 증거 한다. 죄는, 시공우주 시민신분이 요구하는 최고의 책무와 의무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미숙한 자가 비교적 자주적인 인격 의지의 자유에 현혹되는 것을 묘사한다.

유한한 영역에서 죄악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아성의 덧없는 실체를 보여준다. 오로지 **하나님**과 한 편이 됨에 따라서, 피조물은 우주에서 참으로 실재하게 된다. 유한한 인격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연방우주의 선택 경기장에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생명의 증여는, 물질-에너지 체계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존하고,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인격의 증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화하고, **신격**의 융합 영(靈)과 자아가 일체감을 갖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한다.

7. OMNISCIENCE AND PREDESTINATION

118:7.1 (1300.5) The function of Creator will and creature will, in the grand universe, operates within the limi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ossibilities, established by the Master Architects. This foreordination of these maximum limits does not, however, in the least abridge the sovereignty of creature will within these boundaries. Neither does ultimate foreknowledge — full allowance for all finite choice — constitute an abrogation of finite volition. A mature and farseeing human being might be able to forecast the decision of some younger associate most accurately, but this foreknowledge takes nothing away from the freedom and genuineness of the decision itself. The Gods have wisely limited the range of the action of immature will, but it is true will, nonetheless, within these defined limits.

118:7.2 (1300.6) Even the supreme correlation of all past, present, and future choice does not invalidate the authenticity of such choosings. It rather indicates the foreordained trend of the cosmos and suggests foreknowledge of those volitional beings who may, or may not, elect to become contributory parts of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all reality.

118:7.3 (1300.7) Error in finite choosing is time bound and time limited. It can exist only in time and *within* the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Such mistaken choosing is time possible and indicates (besides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that certain range of choice with which immature creatures must be endowed in order to enjoy universe progression by making freewill contact with reality.

118:7.4 (1301.1) Sin in time-conditioned space clearly proves the temporal liberty — even license — of the finite will. Sin depicts immaturity dazzled by the freedom of the relatively sovereign will of personality while failing to perceive the supreme obligations and duties of cosmic citizenship.

118:7.5 (1301.2) Iniquity in the finite domains reveals the transient reality of all God-unidentified selfhood. Only as a creature becomes God identified, does he become truly real in the universes. Finite personality is not self-created, but in the superuniverse arena of choice it does self-determine destiny.

118:7.6 (1301.3) The bestowal of life renders material-energy systems capable of self-perpetuation, self-propagation, and self-adaptation.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mparts to living organisms the further prerogatives of self-determination, self-evolution, and self-identification with a fusion spirit of Deity.

인격자가 없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처음에는 물리 통제관으로서, 그 다음으로는 보조 정신_영들로서, 에너지와_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정신이 있음을 암시한다. 인격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살아있는 체계에 선택이라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체를 증명하려고 의지적 선택을 행사하는 특권을 인격이 갖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진화하는 인격은 또한 자신을_혼란시키고, 자신을_분열시키고, 자신을_파괴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진화하는 인격이 유한자의 의지를 정말로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시공우주에서 자신을_파괴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급 실존 수준들에서는 두루, 인격체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면서 안정성이 늘어난다. 여러 우주를 올라감에 따라서, 선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상승하는 인격체가 신성{神性} 신분을 성취하고, 우주의 목적에 최고로 헌신하며, 시공우주_지혜를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피조물이 일치되는 완결성을 이룩하게 되면, 선택은 결국 신{神}같은 자유에 접근하게 된다.

8. 통제와 전면통제

시_공간 창조계에서, 자유 의지는 속박, 즉 제한조건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질_생명의 진화는, 처음에는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으로 활성화되며, (인격이 증여된 후에는) 영의 지휘를 받을 지도 모른다. **생명 운반자**들이 최초로 물리적_생명을 심은 것들의 잠재성이, 인간거주 세계에서 유기체의 진화를 물리적으로 제한한다.

필사적 사람은, 일종의 기계, 즉 살아있는 장치이며; 사람의 근원은, 정말로 에너지라는 물리적 세계에 있다. 인간의 여러 반응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이며; 생명의 대부분은 기계작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종의 기계장치인 사람은 기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며; 정신이 부여되고 영이 내주하며; 물질적 인생을 사는 동안 화학적 및 전기적 실존 양식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내주하는 **사조울사**의 영적 충동을 집행하는 데 인간의 정신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으로 인해, 어떻게 이런 물리적_생명 기계를, 체험이 지휘하는 지혜에 종속시킬 수 있는지, 사람은 점점 더 배울 수 있다.

의지 기능을, 영은 해방시키고 장치는 제한시킨다. 자동작용으로 통제되지 않고 영과 동화되지 않은 불완전 선택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자동작용의 지배는 진보를 희생시킴으로써 안정성을 보장하며; 영과 협력하는 것은, 선택권을 물리적 수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증대된 우주 통찰력과 증강된 시공우주 파악으로 생긴 신성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118:7.7 (1301.4) Subpersonal living things indicate mind activating energy-matter, first as physical controllers, and then as adjutant mind-spirits. Personality endowment comes from the Father and imparts unique prerogatives of choice to the living system. But if personality has the prerogative of exercising volitional choice of reality identification, and if this is a true and free choice, then must evolving personality also have the possible choice of becoming self-confusing, self-disrupting, and self-destroying. The possibility of cosmic self-destruction cannot be avoided if the evolving personality is to be truly free in the exercise of finite will.

118:7.8 (1301.5) Therefore is there increased safety in narrowing the limits of personality choice throughout the lower levels of existence. Choice becomes increasingly liberated as the universes are ascended; choice eventually approximates divine freedom when the ascending personality achieves divinity of status, supremacy of consecration to the purposes of the universe, completion of cosmic-wisdom attainment, and finality of creature identification with the will and the way of God.

8. CONTROL AND OVERCONTROL

118:8.1 (1301.6) In the time-space creations, free will is hedged about with restraints, with limitations. Material-life evolution is first mechanical, then mind activated, and (after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t may become spirit directed. Organic evolution on the inhabited worlds is physically limited by the potentials of the original physical-life implantations of the Life Carriers.

118:8.2 (1301.7) Mortal man is a machine, a living mechanism; his roots are truly in the physical world of energy. Many human reactions are mechanical in nature; much of life is machinelike. But man, a mechanism, is much more than a machine; he is mind endowed and spirit indwelt; and though he can never throughout his material life escape the chemical and electrical mechanics of his existence, he can increasingly learn how to subordinate this physical-life machine to the directive wisdom of experience by the process of consecrating the human mind to the execution of the spiritual urges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18:8.3 (1301.8) The spirit liberates, and the mechanism limits, the function of will. Imperfect choice, uncontrolled by mechanism, unidentified with spirit, is dangerous and unstable. Mechanical dominance insures stability at the expense of progress; spirit alliance liberates choice from the physical level and at the same time assures the divine stability produced by augmented universe

피조물을 따라다니는 큰 위험은, 생명 장치의 속박에서 해방을 성취할 때, 영과 조화되는 실무 접촉을 이룸으로써 이런 안정성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이를 실패하리라는 것이다. 기계적인 안정성에서 비교적 해방될 때, 피조물의 선택은, 영과 더욱 하나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더욱 자아_해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생물학적 진화의 전체 원리는, 인간거주 세계에서 원시인이 자아를_억제하는, 어떤 큰 재능이든지 갖고 출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화를 계획했던 바로 그 창조적 설계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 속박, 즉 배고픔과 두려움을 똑같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교양 없는 그런 미개한 피조물이 영적 수준 이하로 선택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시킨다. 사람의 정신이 점점 더 어려운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바로 이 창조적 설계는 또한, 인종적 유산(遺産), 즉 애써서 획득한 체험적 지혜가 느리게 축적되도록 마련했다--다른 말로 하면, 감소되는 외부 속박{束縛}과 증대되는 내부 속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진화의 더딤, 즉 인간의 문화가 더디게 진보하는 것은, 그 제동 장치가--곧 물질적 타성이--효과적임을 입증하는데, 이것은 진보의 위험한 속도를 늦추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시간 자체는, 인간 행위를 가장 가깝게 예위쌍는 장벽을 조금하게 벗어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완화시키고 분산시킨다. 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할 때, 즉 물질적 성취가 경배와_지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될 때, 문명은 그 속에 퇴보의 씨앗을 품게 되기 때문이며; 체험에 의거한 지혜가 신속하게 증대됨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그런 인간 사회는 높지만 시기상조로 도달한 수준으로부터 움츠러들 것이고, 지혜가 단절되는 시대인 “암흑기”가 형성돼서, 자아_해방과 자아_통제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냉혹한 상태로 복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캘리개스차의 죄악은, 점진적 인간 해방이라는 시간 조절을 건너뛴 것이었다--억제하는 장애물, 즉 그 시기의 인간 정신이 체험적으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을 정당성 없이 파괴한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 정신은, 바로 그런 행위로, 뛰어넘은 자체의 장벽 대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을 자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지역 체계에서 때 이르게 어떤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시간 조절장치를 붕괴시키려고 했다. 빛과 생명에 정착된 지역 체계는 어떤 관점과 통찰력을

insight and increased cosmic comprehension.

118:8.4 (1302.1) The great danger that besets the creature is that, in achieving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the life mechanism, he will fail to compensate this loss of stability by effecting a harmonious working liaison with spirit. Creature choice, when relatively liberated from mechanical stability, may attempt further self-liberation independent of greater spirit identification.

118:8.5 (1302.2) The whole principle of biologic evolution makes it impossible for primitive man to appear on the inhabited worlds with any large endowment of self-restraint. Therefore does the same creative design which purposed evolution likewise provide those external restraints of time and space, hunger and fear, which effectively circumscribe the subspiritual choice range of such uncultured creatures. As man's mind successfully overstrides increasingly difficult barriers, this same creative design has also provided for the slow accumulation of the racial heritage of painfully garnered experiential wisdom — in other words, for the maintenance of a balance between the diminishing external restraints and the augmenting internal restraints.

118:8.6 (1302.3) The slowness of evolution, of human cultural progress, testifies to the effectiveness of that brake — material inertia — which so efficiently operates to retard dangerous velocities of progress. Thus does time itself cushion and distribute the otherwise lethal results of premature escape from the next-encompassing barriers to human action. For when culture advances overfast, when material achievement outruns the evolution of worship-wisdom, then does civilization contain within itself the seeds of retrogression; and unless buttressed by the swift augmentation of experiential wisdom, such human societies will recede from high but premature levels of attainment, and the “dark ages” of the interregnum of wisdom will bear witness to the inexorable restoration of the imbalance between self-liberty and self-control.

118:8.7 (1302.4) The iniquity of Caligastia was the bypassing of the time governor of progressive human liberation — the gratuitous destruction of restraining barriers, barriers which the mortal minds of those times had not experientially overridden.

118:8.8 (1302.5) That mind which can effect a partial abridgment of time and space, by this very act proves itself possessed of the seeds of wisdom which can effectively serve in lieu of the transcended barrier of restraint.

118:8.9 (1302.6) Lucifer similarly sought to disrupt the time governor operating in restraint of the premature attainment of certain liberties in the local system. A local system settled in light and life

체험으로 성취했으며, 이것은 바로 그 영역이 안정되기 전 시대에 분열시키고 파괴시킬지도 모르는 많은 기법의 작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은, 두려움의 족쇄를 떨쳐버리게 됨에 따라서, 자신의 기계들로 대륙과 대양을 연결시키고, 자신의 기록으로 세대들과 시대들을 연결시키는 데 따라서, 확장하는 인간 지혜의 도덕적 명령에 일치하는 새로운 면서도 자발적으로 떠맡은 금지조항으로, 각각의 과도한 금지조항을 대체시켜야 한다. 스스로 부과한 이 제약조건--곧 응보의 개념과 형제관계의 이상(理想)--은, 인간 문명의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동시에 가장 빈약한 것이다. 사람은 동료 사람들을 용기 있게 사랑할 때 자비라는 자제하는 옷을 입을 자격까지 갖추며, 한편 그는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그들을 대우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인 형제관계를 성취하기 시작한다.

우주의 자동 반응은 안정돼 있고, 어떤 형태로 시공우주에서 계속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인격체, 즉 영 통찰력을 지닌 인격체는, 신성하게 안정돼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 우주에서 사람의 큰 모험은, 그의 필사 정신이, 기계적으로 고정된 안정성에서, 영적으로 역동적인 신성(神性)으로 넘어가는 데 있으며, 인생의 상황 하나하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인격이 내린 결정의 힘과 끈질김으로 이 변화를 완수한다.

9. 우주 장치

시간과 공간은 총괄우주에 겹쳐있는 하나의 장치다. 시간과 공간은,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와 함께 시공우주에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방책이다. 유한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으로 말미암아 절대 수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돼있다. 그러나 격리하는 이런 매체들 없이는 어떤 필사자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매체들은 유한한 행동 범위를 제한하도록 직접 작동한다. 시간과 공간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활동할 수 없으나, 모든 피조물 활동은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분명히 제한된다.

상류 지성인들이 제작한 기계장치들은 그 창조 근원을 해방시키도록 작동하지만, 모든 종속 지성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어김없이 제한시킨다. 우주의 피조물에게 이 제한은 우주의 장치로서 명백해진다. 사람은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의 선택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그의 의지는 이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필사 인격체의 생명 장치, 즉 인간의 육체는

has experientially achieved those viewpoints and insights which make feasible the operation of many techniques that would be disruptive and destructive in the presettled eras of that very realm.

118:8.10 (1302.7) As man shakes off the shackles of fear, as he bridges continents and oceans with his machines, generations and centuries with his records, he must substitute for each transcended restraint a new and voluntarily assumed restraint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dictates of expanding human wisdom. These self-imposed restraints are at once the most powerful and the most tenuous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ivilization — concepts of justice and ideals of brotherhood. Man even qualifies himself for the restraining garments of mercy when he dares to love his fellow men, while he achieves the beginnings of spiritual brotherhood when he elects to mete out to them that treatment which he himself would be accorded, even that treatment which he conceives that God would accord them.

118:8.11 (1303.1) An automatic universe reaction is stable and, in some form, continuing in the cosmos. A personality who knows God and desires to do his will, who has spirit insight, is divinely stable and eternally existent. Man's great universe adventure consists in the transit of his mortal mind from the stability of mechanical statics to the divinity of spiritual dynamics, and he achieves this transformation by the force and constancy of his own personality decisions, in each of life's situations declaring, "It is my will that your will be done."

9. UNIVERSE MECHANISMS

118:9.1 (1303.2) Time and space are a conjoined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the devices whereby finite creatures are enabled to coexist in the cosmos with the Infinite. Finite creatures are effectively insulated from the absolute levels by time and space. But these insulating media, without which no mortal could exist, operate directly to limit the range of finite action. Without them no creature could act, but by them the acts of every creature are definitely limited.

118:9.2 (1303.3) Mechanisms produced by higher minds function to liberate their creative sources but to some degree unvaryingly limit the action of all subordinate intelligences. To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is limitation becomes apparent as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s. Man does not have unfettered free will; there are limits to his range of choice, but within the radius of this choice his will is relatively sovereign.

118:9.3 (1303.4) The life mechanism of the mortal

필사를 초월하는 창조 설계의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인체를 결코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 오직 상승하는 사람만이, 융합된 **조율사**와 연합해서 인격 표현 작용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에만, 인체에 대해서 완비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광우주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살아있는 장치다--**지존자 정신**이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최상급 영**과 함께 조정하며,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과 인격을 통합하는 최고 수준에서 표현을 찾는 살아있는 장치다. 그러나 유한한 창조가 장치임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고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장치들은, 정신, 즉 시공우주 잠재력에 따라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창조적 정신의 산물이다. 장치들은, **창조주**의 생각을 일정하게 정형화 한 것이며, 자신을 기원시킨 의지 개념에 늘 충실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어떤 장치든지 그 목적은 근원에 있고 기능에 있지 않다.

이런 장치는 **신격** 행동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바로 이 기교 속에서, **신격**이 한 국면의 영원한 표현을 성취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 우주 장치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적 뜻에 반응하여 존재하게 됐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무한자**의 계획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영원히 작용할 것이며; 그것들이야말로 바로 그 계획의, 의지가 없는 원형이다.

낙원의 장치가 **영원한 아들**의 인격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적 존재**의 이론적 장치와 **신격 절대자**의 잠재적 인격자에 대해서 **우주 절대자**가 무슨 작용을 하는가에 관한 여러 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지존 신격**과 **궁극 신격** 안에서, 우리는 어떤 비인격 국면들이 의지를 지닌 그들의 상대자와 실제로 결합하고, 그래서 원형과 인격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진화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과거의 영원에,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표현하는 통일에서 합동을 획득했다. 미래의 영원에,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의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적 영**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에서 창조적 합동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성한 본성의 융합된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통일이 무엇을 창조하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궁극 신격**, 즉 새로운 유형의 초월 통치자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존재들은, 인격있는 **창조주**, 비인격 **창조적 영**, 필사 피조물 체험, 및 **신성한 대리인**의 점진적 인격화의 합동이므로, 독특한 인격 특권을 지닐 것이다. 인격있는 실체와 비인격 실체를 그들이 포함하고, 한편 **창조주**와 피조물의 체험을 결합시킬 것임

personality, the human body, is the product of supermortal creative design; therefore it can never be perfectly controlled by man himself. Only when ascending man, in liaison with the fused Adjuster, self-creates the mechanism for personality expression, will he achieve perfected control thereof.

118:9.4 (1303.5) The grand universe is mechanism as well as organism, mechanical and living — a living mechanism activated by a Supreme Mind, co-ordinating with a Supreme Spirit, and finding expression on maximum levels of power and personality unification as the Supreme Being. But to deny the mechanism of the finite creation is to deny fact and to disregard reality.

118:9.5 (1303.6) Mechanisms are the products of mind, creative mind acting on and in cosmic potentials. Mechanisms are the fixed crystallizations of Creator thought, and they ever function true to the volitional concept that gave them origin. But the purposiveness of any mechanism is in its origin, not in its function.

118:9.6 (1303.7) These mechanism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limiting the action of Deity; rather is it true that in these very mechanics Deity has achieved one phase of eternal expression. The basic universe mechanisms have come into existence in response to the absolute wil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y will therefore eternally function in perfect harmony with the plan of the Infinite; they are, indeed, the nonvolitional patterns of that very plan.

118:9.7 (1303.8) We understand something of how the mechanism of Paradise is correlated with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his is the function of the Conjoint Actor. And we have theories regarding the operations of the Universal Absolut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mechanisms of the Unqualified and the potential person of the Deity Absolute. But in the evolving Deities of Supreme and Ultimate we observe that certain impersonal phases are being actually united with their volitional counterparts, and thus there is evolv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pattern and person.

118:9.8 (1304.1) In the eternity of the past the Father and the Son found union in the unity of the expression of the Infinite Spirit. If, in the eternity of the future,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should attain creative union in the realms of outer space, what would their unity create as the combined expression of their divine natures? It may well be that we are to witness a hitherto unrevealed manifestation of Ultimate Deity, a new type of superadministrator. Such beings would embrace unique prerogatives of personality, being the union of personal Creator, impersonal Creative Spirit, mortal-creature experience, and progressive personalization of the Divine Minister.

로, 그런 존재들은 궁극적 존재일지도 모른다. 외부 공간의 창조계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가정된, 이 삼자일체들에 속하는 그런 제3 인격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들은, **무한한 영이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과** 유지하는 바로 그 관계에 해당하는 무엇을, **창조주 아버지들** 및 **창조적 어머니들**에 대해서 유지할 것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모든 우주 체험의 인격화, 모든 유한한 진화의 집중, 모든 피조물 실체의 극대화, 시공우주 지혜의 극치, 시간세계에 속한 성운들의 조화미의 구현, 시공우주 정신이 가진 의미의 진리, 그리고 최상의 영 가치를 지닌 미덕이시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한한 다양성이 지금 절대 수준에서 실존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미래에 **지존자 하나님**은, 이를 체험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통합할 것이다.

10. 섭리의 기능

섭리(攝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 그것은 시공우주의 횡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비교적 선택 능력을 가졌다. 또한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고 버릇없게 만드는 사람의 근시안적 애정도 신성한 사랑일 수 없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삼위일체**로서-- **전능한 지존자**가 아니지만, **전능자**의 지존성은 그들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전능자**의 성장은, 실체성의 **절대자**들에 중심을 두고, 잠재성의 **절대자**들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전능한 지존자**의 역할은 **낙원 삼위일체**의 역할과 연관된다.

지존하신 분 안에서, 이 체험 **신격**의 인격은, 모든 국면의 우주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결합하고 있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그리고 이 개념을 현재 알려지고 조성된 광우주에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이 **낙원 삼위일체**의 부분적 인물묘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광우주에서 이 **지존 신격**이, 유한한 물질, 정신, 및 영을 인격으로 통합한 것으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들은 속성을 지녔지만 **삼위일체**는 기능을 지녔으며,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섭리는 하나의 기능인데, 이것은 온갖 우주의 인격자 이외 다른 전면통제의 혼합물이며, 그 온갖 우주는,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합성하는 **칠중 하나님**의 진화 수준으로부터, **궁극 신격**의 초월 영역을 거쳐서,

Such beings could be ultimate in that they would embrace personal and impersonal reality, while they would combine the experiences of Creator and creature. Whatever the attributes of such third persons of these postulated functioning trinities of the creations of outer space, they will sustain something of the same relation to their Creator Fathers and their Creative Mothers that the Infinite Spirit does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118:9.9 (1304.2) God the Supreme is the personalization of all universe experience, the focalization of all finite evolution, the maximization of all creature reality, the consummation of cosmic wisdom, the embodiment of the harmonious beauties of the galaxies of time, the truth of cosmic mind meanings, and the goodness of supreme spirit values. And God the Supreme will, in the eternal future, synthesize these manifold finite diversities into one experientially meaningful whole, even as they are now existentially united on absolute levels in the Paradise Trinity.

10. FUNCTIONS OF PROVIDENCE

118:10.1 (1304.3) Providence does not mean that God has decided all things for us and in advance. God loves us too much to do that, for that would be nothing short of cosmic tyranny. Man does have relative powers of choice. Neither is the divine love that shortsighted affection which would pamper and spoil the children of men.

118:10.2 (1304.4) The Father, Son, and Spirit — as the Trinity — are not the Almighty Supreme, but the supremacy of the Almighty can never be manifest without them. The *growth* of the Almighty is centered on the Absolutes of actuality and predicated on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But the *functions* of the Almighty Supreme are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118:10.3 (1304.5) It would appear that, in the Supreme Being, all phases of universe activity are being partially reunited by the personality of this experiential Deity. When, therefore, we desire to view the Trinity as one God, and if we limit this concept to the present known and organized grand universe, we discover that the evolving Supreme Being is the partial portraitur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e further find that this Supreme Deity is evolving as the personality synthesis of finite matter, mind, and spirit in the grand universe.

118:10.4 (1304.6) The Gods have attributes but the Trinity has functions, and like the Trinity, providence is a function, the composite of the other-than-personal overcontro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extending from the evolutionary levels of the Sevenfold synthesizing in the power of the Almighty on up through the transcendental realms

위로 확장한다.

하나님은 피조물 각자를 자녀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모든 시대와 영원성 내내 각 피조물을 감싼다. 섭리는 전체와 관련해 작용하며, 그런 기능이 전체와 관련되는 대로, 어떤 피조물 기능이든지 다룬다. 어떤 존재에 관해서든지 섭리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전체가 진화로 성장하는 데 관계하는 만큼 그 존재의 기능이 중요함을 암시하며; 그런 전체는, 종족 전체,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또는 심지어 더 확대된 전체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 피조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섭리에 따른 개입을 발생시키는 피조물 기능의 중요성이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어울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유발돼서, 어느 때든지 시공우주 사건들의 흐름 속에 아버지다운 손을 대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자신의 상상, 즉 우연한 환경들에서 생기는 뜻밖의 일치에 따른 산물일 때가 너무 많다. 그럴지라도 우주 실존의 유한 영역에는 실제적이고 새로 발생하는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는, 공간의 에너지, 시간의 움직임, 지능이 품는 생각, 성품을 나타내는 이상{理想}, 영적 본성의 욕구, 그리고 진화하는 인격체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뜻하는 행동의 상호관계를 참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질 영역의 여러 상황은, **지존자**와 **궁극자**의 결합된 현존 속에서, 최종적으로 유한하게 통합된다.

광우주의 장치들이 정신의 전면통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밀한 지점까지 완전하게 됨에 따라서, 피조물의 정신이 영과 완전하게 통합함으로써 신성을 달성하는 완전성을 향해 상승함에 따라서, 그리고 **지존자**가 이런 모든 우주 현상의 **실제** 통합자로서 결과적으로 떠오름에 따라서, 섭리는 점점 더 식별 가능하게 된다.

진화 세계들에서 때때로 효과를 나타내는, 놀랍게 우연한 어떤 조건들은, 점차 떠오르는 **지존자**의 현존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필사자가 섭리라고 부르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지 않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그의 판단은, 인생의 환경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 크게 제약 받는다. 필사자가 행운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불운일 수 있으며; 노력 없이 얻는 한가함과 부당한 재물을 증여하는 행운의 미소는, 최대의 인간 고통이 될 수 있으며; 고통 받는 어떤 필사자에게 시련을 쌓아 올리는 심술궂은 운명의 외견적 잔혹성이, 실제로는 연약한 쇠처럼 미성숙한 인격을 단련시켜서 진정한 성질을 갖는 쇠가 되도록 바꾸려고 단련하는 불일 수도 있다.

of the Ultimacy of Deity.

118:10.5 (1304.7) God loves each creature as a child, and that love overshadows each creature throughout all time and eternity. Providence functions with regard to the total and deals with the function of any creature as such function is related to the total. Providential intervention with regard to any being is indicative of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that being as concerns the evolutionary growth of some total; such total may be the total race, the total nation, the total planet, or even a higher total. It is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the creature that occasions providential intervention, not the importance of the creature as a person.

118:10.6 (1305.1) Nevertheless, the Father as a person may at any time interpose a fatherly hand in the stream of cosmic events all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and in consonance with the wisdom of God and as motivated by the love of God.

118:10.7 (1305.2) But what man calls providence is all too often the product of his own imagination, the fortuitous juxtaposition of the circumstances of chance. There is, however, a real and emerging providence in the finite realm of universe existence, a true and actualizing correlation of the energies of space, the motions of time, the thoughts of intellect, the ideals of character, the desires of spiritual natures, and the purposive volitional acts of evolving personalities. The circumstances of the material realms find final finite integration in the interlocking presence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18:10.8 (1305.3) As the mechanisms of the grand universe are perfected to a point of final precision through the overcontrol of mind, and as creature mind ascends to the perfection of divinity attainment through perfected integration with spirit, and as the Supreme consequently emerges as an *actual* unifier of all these universe phenomena, so does providence become increasingly discernible.

118:10.9 (1305.4) Some of the amazingly fortuitous conditions occasionally prevailing on the evolutionary worlds may be due to the gradually emerging presence of the Supreme, the foretasting of his future universe activities. Most of what a mortal would call providential is not; his judgment of such matters is very handicapped by lack of farsighted vision into the true meanings of the circumstances of life. Much of what a mortal would call good luck might really be bad luck; the smile of fortune that bestows unearned leisure and undeserved wealth may be the greatest of human afflictions; the apparent cruelty of a perverse fate that heaps tribulation upon some suffering mortal may in reality be the tempering fire that is transmuting the soft iron of immature personality into the tempered steel of real character.

진화하는 우주들에는 섭리가 있으며, 피조물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한 바로 그 정도까지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의 목적을 분간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은 피조물이 진화로 완성되는 것과 같으며, 달리 말하면, 미완성 우주들의 현재 상태의 한계 내에서 **지존자**께 도달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모든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직접 작용하며;--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개인적이다. **신격**의 비인격적 현존은(곧 **전능한 지존자**와 **낙원 삼위일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지존성**이 전면통제한다는 섭리는, 우주에서 점진적으로 유한한 운명을 달성하는 연속된 부분으로서, 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체계, 성좌, 우주, 및 연방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함에 따라서, **지존자**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심장하게 상호 관련시키는 자로서 점점 더 떠오르며, 한편 **궁극자**는 만물의 초월적 통합자로서 점차적으로 떠오른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처음에는 물질 계통의 자연발생과 인간의 개인적 욕구가 흔히 반대되는 듯이 보인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은, 필사적 사람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곧 자연 법칙은 너무나 흔히 무자비하고, 냉혹하며, 인간이 납득하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행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우리는 이런 관점이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발견한다:

1. **사람의 증대되는 상상력**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더욱 이해함; 시간세계의 물질 실상, 생각하는 의미심장한 관념,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지닌 귀중한 이상(理想)을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 사람들이 오직 물리적 본성을 갖는 물체를 갖대로 해서 측정하는 한, 그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통일을 발견할 희망이 없다.

2. **사람의 증가하는 통제** --물질 세계의 법칙에 대한 지식의 점증적 누적, 영적 실존의 목적, 그리고 이 두 실체를 철학으로 조정할 가능성. 사람, 즉 미개인은 자연력의 맹공격 앞에서 무기력했으며, 자신의 내면적 공포심의 가혹한 지배력 앞에 노예가 됐다. 약간문명화된 사람은 자연 영역의 비밀로 채워진 창고의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고, 그의 과학은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미신을 파괴시키는 동시에, 철학의 의미와 참된 영적 체험의 가치를 납득하는 데 필요한, 새롭고 사실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행성의 물리적 세력을 비교적 통달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료 사람들을 사랑할 만큼 효과적으로 부여될 것이고, 한편 인간 실존의 가치는 필사자 수용력의 한계점

118:10.10 (1305.5) There is a providence in the evolving universes, and it can be discovered by creatures to just the extent that they have attained capacity to perceive the purpose of the evolving universes. Complete capacity to discern universe purposes equals the evolutionary completion of the creature and may otherwise be expressed as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incomplete universes.

118:10.11 (1305.6) The love of the Father operates directly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independent of the actions or reactions of all other individuals; the relationship is personal — man and God. The impersonal presence of Deity (Almighty Supreme and Paradise Trinity) manifests regard for the whole, not for the part. The providence of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as the successive parts of the universe progress in the attainment of finite destinies. As the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Supreme increasingly emerges as the meaningful correlator of all that is transpiring, while the Ultimate gradually emerges as the transcendental unifier of all things.

118:10.12 (1306.1) In the beginnings on an evolutionary world the natural occurrences of the material order and the personal desires of human beings often appear to be antagonistic. Much that takes place on an evolving world is rather hard for mortal man to understand — natural law is so often apparently cruel, heartless, and indifferent to all that is true, beautiful, and good in human comprehension. But as humanity progresses in planetary development, we observe that this viewpoint is modified by the following factors:

118:10.13 (1306.2) 1. *Man's augmenting vision* — his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in which he lives; his enlarging capacity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material facts of time, the meaningful ideas of thought, and the valuable ideals of spiritual insight. As long as men measure only by the yardstick of the things of a physical nature, they can never hope to find unity in time and space.

118:10.14 (1306.3) 2. *Man's increasing control* — the gradual accumulation of the knowledge of the laws of the material world, the purposes of spiritual existence,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philosophic co-ordination of these two realities. Man, the savage, was helpless before the onslaughts of natural forces, was slavish before the cruel mastery of his own inner fears. Semicivilized man is beginning to unlock the storehouse of the secrets of the natural realms, and his science is slowly but effectively destroying his supersti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new and enlarged factual basis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s of philosophy and the values of true spiritual experience. Man, the civilized, will

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3. **사람의 우주 통합** --인간의 통찰력이 증대되고 그 위에 인간의 체험적 성취가 증가하면, **지존성**의 통합하는 현존들--곧 **낙원 삼위일체**와 **지존하신 분**--과 인간이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안정된 세계들에서 **지존자**의 주권을 확립한다. 그렇게 진보된 행성들은, 정말로 조화를 이룬 시{詩} 같으며, 시공우주 진리를 추구함으로 달성한 선함의 아름다움을 그런 그림과 같다. 그런 일들이 한 행성에 발생할 수 있다면, 광우주에서 한 체계 그리고 더 큰 단위에, 그들 역시 유한 성장 잠재력이 모두 소모됐음을 나타내는 어떤 안정된 상태를 성취함에 따라서, 심지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진보된 계통에 해당하는 행성에서, 섭리는 하나의 사실이 됐고, 생명의 여러 상황은 서로 관련되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세상의 물질적 문제를 지배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또한 우주들의 경향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며;그는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 **지존성**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며, 이 나라가 한 세계에 속한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실체화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행성에 실체화 되며;이것이 **지존하신 분**의 달성된 주권이다.

시간세계에서 섭리를 깨달으려면, 사람은 완전성을 성취하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만물의 **아버지**를 탐구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전진을 위해, 선하든지 악하든지, 만물이 함께 일한다는 우주 실상을 깊이 생각한다면, 사람은 이 섭리의 영원한 의미를 지금이라도 미리 맛볼 수 있다.

사람은,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위로 손을 뻗을 때, 섭리를 점점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완성된 영적 통찰력에 도달하는 것은, 상승하는 인격체로 하여금, 이때까지 혼돈이었던 것 속에서 조화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든다. 심지어 모몬시아 모타도 이런 방향으로 진정한 진보를 나타낸다.

섭리는 부분적으로, 미완성 우주에서 완성되지 않은 **지존자**의 전면통제가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1. **부분적이다** --**지존하신 분**의 실체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2. **예측할 수 없다** --피조물의 태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태도는 늘 수준에 따라 달라

someday achieve relative mastery of the physical forces of his planet; the love of God in his heart will be effectively outpoured as love for his fellow men, while the values of human existence will be nearing the limits of mortal capacity.

118:10.15 (1306.4) 3. *Man's universe integration* — the increase of human insight plus the increase of human experiential achievement brings him into closer harmony with the unifying presences of Supremacy — Paradise Trinity and Supreme Being. And this is what establishes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on the world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Such advanced planets are indeed poems of harmony, pictures of the beauty of achieved goodness attained through the pursuit of cosmic truth. And if such things can happen to a planet, then even greater things can happen to a system and the larger units of the grand universe as they too achieve a settledness indicating the exhaustion of the potentials for finite growth.

118:10.16 (1306.5) On a planet of this advanced order, providence has become an actuality, the circumstances of life are correlated, but this is not only because man has come to dominate the material problems of his world; it is also because he has begun to liv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universes; he is following the pathway of Supremacy to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118:10.17 (1306.6)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hearts of men, and when this kingdom becomes actual in the heart of every individual on a world, then God's rule has become actual on that planet; and this is the attained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118:10.18 (1306.7) To realize providence in time, man must accomplish the task of achieving perfection. But man can even now foretaste this providence in its eternity meanings as he ponders the universe fact that all things, be they good or evil, work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God-knowing mortals in their quest for the Father of all.

118:10.19 (1306.8) Providence becomes increasingly discernible as men reach upward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The attainment of completed spiritual insight enables the ascending personality to detect harmony in what was theretofore chaos. Even morontia mota represents a real advance in this direction.

118:10.20 (1307.1) Providence is in part the overcontrol of the incomplete Supreme manifested in the incomplete universes, and it must therefore ever be:

118:10.21 (1307.2) 1. *Partial* —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nd

118:10.22 (1307.3) 2. *Unpredictable* — due to the fluctuations in creature attitude, which ever varies

지며, 그리하여 **지존자** 안에서 외견적으로 변하는 상호적 반응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섭리의 개입이 있기를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인생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가 변화됨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섭리는 변덕스럽지 않으며, 또한 공상적이거나 마술적이지도 않다. 섭리는 유한한 우주들의 강력한 주권자가 서서히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인데, 진화하는 피조물은 우주에서 진보하면서 때때로 그의 위엄 있는 현존을 발견한다. 섭리는 처음에 **지존자** 안에, 다음에는 **궁극자** 안에, 그리고 아마 **절대자** 안에 있는 영원성의 목표들을 향해, 공간의 성단들과 시간세계의 인격체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 속에 동일한 섭리가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수많은 우주에서 시공우주의 펼쳐지는 광경을 이처럼 일으키는, **낙원 삼위일체**의 뜻이요, 행동이요, 목적이다.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from level to level, thus causing apparently variable reciprocal response in the Supreme.

118:10.23 (1307.4) When men pray for providential intervention in the circumstances of life, many times the answer to their prayer is their own changed attitudes toward life. But providence is not whimsical, neither is it fantastic nor magical. It is the slow and sure emergence of the mighty sovereign of the finite universes, whose majestic presence the evolving creatures occasionally detect in their universe progressions. Providence is the sure and certain march of the galaxies of space and the personalities of time toward the goals of eternity, first in the Supreme, then in the Ultimate, and perhaps in the Absolute. And in infinity we believe there is the same providence, and this is the will, the actions, the purpose of the Paradise Trinity thus motivating the cosmic panorama of universes upon universes.

118:10.24 (1307.5)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119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 118

유란시아 책

120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19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섹션

소개

1. 첫 번째 증여
2. 두 번째 증여
3. 세 번째 증여
4. 네 번째 증여
5. 다섯 번째 증여
6. 여섯 번째 증여
7.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
8. 미가엘의 증여 이후 신분

PAPER 119
THE BESTOWALS OF CHRIST
MICHAE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irst Bestowal
2. The Second Bestowal
3. The Third Bestowal
4. The Fourth Bestowal
5. The Fifth Bestowal
6. The Sixth Bestowal
7.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8. Michael's Postbestowal Status

소개

네바돈의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인 나는, 우주 통치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증여했다는 이야기를 게시하는 사명을 가브리엘로부터 받고 유란시아에 배정됐으며, 내 이름은 가바리아다. 본 문서를 만들면서, 나는 내 임무에 부과된 제한 조건을 엄밀히 지킬 것이다.

자신을 증여하는 속성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아들들에게 선천적이다. 다양한 계층의 낙원 아들들은, 자신에게 종속된 살아있는 피조물의 인생 체험에 가까이 가려는 바람으로, 낙원 부모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낙원 삼위일체 가운데 영원한 아들이 이 관례에 앞장섰으며,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온 첫 순례자인 그랜환다가 상승하던 시절에,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 자신을 일곱 번 증여했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대행자인 미가엘들 및 아보날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공간의 지방우주들에 자신을 계속 증여한다.

입안된 지방우주에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

INTRODUCTION

119:0.1 (1308.1) CHIEF of the Evening Stars of Nebadon, I am assigned to Urantia by Gabriel on the mission of revealing the story of the seven bestowals of the Universe Sovereign, Michael of Nebadon, and my name is Gavalia. In making this presentation, I will adhere strictly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my commission.

119:0.2 (1308.2) The attribute of bestowal is inherent in the Paradise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ir desire to come close to the life experiences of their subordinate living creatures, the various orders of the Paradise Sons are reflecting the divine nature of their Paradise parents. The Eternal Son of the Paradise Trinity led the way in this practice, having seven times bestowed himself up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during the times of the ascension of Grandfanda and the first of the pilgrims from time and space. And the Eternal Son continues to bestow himself upon the local universes of space in the persons of his representatives, the Michael and Avonal Sons.

119:0.3 (1308.3) When the Eternal Son bestows a

들을 증여할 때, 그 **창조주 아들**은 새로운 우주를 완성하고, 통제하고, 조직하는 총 책임을 맡는데, 이것은, 그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증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관할하는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 자**들의 보증을 받기까지, 그 새 창조물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삼위일 체**에게 드리는 엄중한 맹세를 포함한다. 우주를 조직하고 창조하기 위해 **낙원**에서 밖으로 나가기 를 자청하는 **미가엘 아들**은 모두 이 의무를 떠맡는다.

이렇게 피조물로서 육신화하는 목적은, 그런 **창조주**들이, 현명하고, 동정적이고, 올바르고, 이해심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선천적으로 올바르지만, 연속되는 이 증여 체험 결과로 사려 깊게 자비로운 존재가 되며; 천부적으로 자비롭지만, 이 체험들이 그들을 새롭고 추가적인 방법에서 자비롭도록 만든다. 이 증여는, 신성한 정의로,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지방우주를 통치하는 숭고한 과제를 위해 그들이 받는 교육과 훈련에서 마지막 과정이다.

이 증여에 영향을 받고 혜택을 입는 다른 계층의 우주 지성체들뿐 아니라, 가지각색의 세계, 체계, 및 성좌들에게 수많은 부수적{附隨的} 유익이 생기더라도, 증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아들** 자신의 개인적 훈련과 우주 교육을 완성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 증여들은, 한 지방우주를 현명하고 의로우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채로운 형태의 생명 그리고 지성적이지만 완전치 못한 무수한 피조물이 가득한 그런 창조물을, 공정하고, 자비롭고, 이해심 있게 경영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미가엘 아들들은, 자신이 창조한 다양한 계층의 존재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연민의 정을 갖고 우주를 조성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베풀려고 엄청난 자비를 축적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만들어낸 이기적 수렁에서 잘못을 범하고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까지 지녔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로 이뤄진 그런 재능이, **태고 항존자**들의 평가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연방우주들의 이 삼중 통치자들은, **창조주 아들** 자신이 실존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바로 이런 피조물 자신으로서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피조물 관점을 정말로 획득하기 전에는, 결코 그를 **우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들**들은 지성적이고 이해심 많은 통치자가 되며; 자신이 다스리고 우주 권세를 행사할 다양한 집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생생한 체험을 겪음으로써, 체험하는 피조물 실존에서 생겨나는, 실용적 자비, 공정한 판단력, 및 인쇄심을 몸소 소유한다.

네바돈 지방우주는, 자신의 증여 복무를 완료

Creator Son upon a projected local universe, that Creator Son assume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mpletion, control, and composure of that new universe, including the solemn oath to the eternal Trinity not to assume full sovereignty of the new creation until his seven creature bestowals shall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nd certifi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jurisdiction. This obligation is assumed by every Michael Son who volunteers to go out from Paradise to engage in universe organization and creation.

119:0.4 (1308.4) The purpose of these creature incarnations is to enable such Creators to become wise, sympathetic, just, and understanding sovereigns. These divine Sons are innately just, but they become understandingly merciful as a result of these successive bestowal experiences; they are naturally merciful, but these experiences make them merciful in new and additional ways. These bestowals are the last steps in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ublime tasks of ruling the local universes in divine righteousness and by just judgment.

119:0.5 (1308.5) Though numerous incidental benefits accrue to the various worlds, systems, and constellations, as well as to the different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affected and benefited by these bestowals, still they are primarily designed to complete the personal training and universe education of a Creator Son himself. These bestowals are not essential to the wise, jus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a local universe, but they are absolutely necessary to a fair, merciful, and understanding administration of such a creation, teeming with its varied forms of life and its myriads of intelligent but imperfect creatures.

119:0.6 (1308.6) The Michael Sons begin their work of universe organization with a full and just sympathy for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whom they have created. They have vast stores of mercy for all these differing creatures, even pity for those who err and flounder in the selfish mire of their own production. But such endowments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not suffice in the estimate of the Ancients of Days. These triune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will never certify a Creator Son as Universe Sovereign until he has really acquired the viewpoint of his own creatures by actual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of their existence and as these very creatures themselves. In this way such Sons become intelligent and understanding rulers; they come to *know* the various groups over which they rule and exercise universe authority. By living experience they possess themselves of practical mercy, fair judgment, and the patience born of experiential creature existence.

119:0.7 (1309.1)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s now

한 한 **창조주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며; 그는 진화하고 완전하게 돼 가고 있는 자기 우주의 방대한 영역 전체를, 공정하고 자비로운 최고 지위에서 통치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영원한 아들**이 611,121번째로 증여한 분이고, 그는 4천억 년 전에 너희 지방우주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미가엘**은, **유란시아**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기 무렵인 약 10억 년 전에, 첫 증여 모험을 준비했다. 그의 여러 증여는 1억 5천만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는데, 마지막 증여는 약 1,900년 전에 **유란시아**에서 이뤄졌다. 나는 이제, 이 여러 증여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내 직권이 허락하는 만큼 충실히 밝히려 한다.

1. 첫 번째 증여

거의 10억 년 전에, **네바돈** 우주의 지휘자들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곧 **미가엘**) 밝혀지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의 형님인 **임마누엘**이 **네바돈**에서의 주권을 곧 대신하게 될 것임을 **미가엘**이 밝혔을 때, 그것은 **살빙톤**에서 장엄한 행사였다. 다른 여러 지침 가운데 **성좌 아버지**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제외한다면: “내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떠나있는 이 기간에, 너희를 **임마누엘**의 보살핌과 보존에 맡기겠다”는 말 외에는, 이 진행사항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이 작별 방송을 내보낸 후에, **미가엘**이 **살빙톤**의 파송 광장에 나타났는데, 혼자 왔다는 사실 외에는, **우버사** 또는 **낙원**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전의 여러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출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다수가 나와 함께 가려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는 **낙원 신격**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내 사명을 마치고 이 체험을 획득하면, 너희 가운데 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바돈의 미가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존재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표준시간으로 2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살빙톤** 전체에서, **신성한 통치자**와 **임마누엘**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며, **합동 항존자들**은 이 비밀을, 오직 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 즉 **빛나는 새벽별**과 공유했다.

살빙톤의 모든 주민, 그리고 성좌 및 체계 본부 세계들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창조주 아들**의 사명과 행방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희망을 안고, 우주 지성체를 위한 그들 각자의 수신소에 모였다. **미가엘**이 출발한 지 3일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소식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날,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 계층의 본부인 **멜기세덱** 구체

ruled by a Creator Son who has completed his service of bestowal; he reigns in just and merciful supremacy over all the vast realms of his evolving and perfecting universe. Michael of Nebadon is the 611,121st bestowal of the Eternal Son upo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d he began the organization of your local universe about four hundred billion years ago. Michael made ready for his first bestowal adventure about the time Urantia was taking on its present form, one billion years ago. His bestowals have occurred abou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part, the last taking place on Urantia nineteen hundred years ago. I will now proceed to unfold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se bestowals as fully as my commission permits.

1. THE FIRST BESTOWAL

119:1.1 (1309.2) It was a solemn occasion on Salvington almost one billion years ago when the assembled directors and chiefs of the universe of Nebadon heard Michael announce that his elder brother, Immanuel, would presently assume authority in Nebadon while he (Michael) would be absent on an unexplained mission. No other announcement was made about this transaction except that the farewell broadcast to the Constellation Fathers, among other instructions, said: “And for this period I place you under the care and keeping of Immanuel while I go to do the bidding of my Paradise Father.”

119:1.2 (1309.3) After sending this farewell broadcast, Michael appeared on the dispatching field of Salvington, just as on many previous occasions when preparing for departure to Uversa or Paradise except that he came alone. He concluded his statement of departure with these words: “I leave you but for a short season. Many of you, I know, would go with me, but whither I go you cannot come. That which I am about to do, you cannot do. I go to do the will of the Paradise Deities, and when I have finished my mission and have acquired this experience, I will return to my place among you.” And having thus spoken, Michael of Nebadon vanished from the sight of all those assembled and did not reappear for twenty years of standard time. In all Salvington, only the Divine Minister and Immanuel knew what was taking place, and the Union of Days shared his secret only with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119:1.3 (1309.4) All the inhabitants of Salvington and those dwelling on the constellation and system headquarters worlds assembled about their respective receiving stations for universe intelligence, hoping to get some word of the mission and whereabouts of the Creator Son. Not until the third day after Michael's departure was

에서 한 통신문이 **살빙톤**에 등록됐는데, 그것은 특별하고 전에 들어본 바 없는 이 진행사항을 간단히 기록했다: “우리 계층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어떤 **멜기세덱 아들이**, 오늘 정오에 이 세계의 수신소에 나타났다. 그에게는 **우버사**로부터 신임장{信任狀}을 지닌 전{全}스랍이 홀로 따라왔는데, 그 전스랍이 우리 우두머리에게 주는 명령서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태고 항존자**로부터 내려왔고, **살빙톤의 임마누엘**의 동의를 받았으며, 새로운 이 **멜기세덱 아들**을 우리 계층으로 받아들여서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의 비상대책 근무에 배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했으며; 그대로 실행됐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관하여 **살빙톤** 기록에 나타난 거의 전부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런 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 **미가엘**이 돌아와서, 아무 선포 없이, 우주 직무의 지휘를 재개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어떤 이상한 기록이 **멜기세덱** 세계에서 발견될 것인데, 그 시대의 비상대책 단체에 속한 이 독특한 **멜기세덱 아들**의 복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기록은 현재 **아버지 멜기세덱**의 집 앞마당에 자리 잡은 어떤 소박한 모습의 성전에 보관돼 있고, 우주 비상사태에 대한 스물네 번의 사명에 그가 배정됐던 것과 관련해서, 잠시 있었던 이 **멜기세덱 아들**의 복무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내가 살펴본 이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정오에, 사전 발표 없이 그리고 오직 세 명의 우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우리 계층의 이 방문자 **아들**은 자신이 왔던 대로 우리 세계에서 사라졌는데, 단 하나의 전스랍만 동행했으며; 이 기록은 이 방문자가 현재 한 **멜기세덱**으로서, 즉 그가 **멜기세덱**으로서 일했던 어떤 **멜기세덱**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과, 우리 계층의 비상대책 **아들**로서 배정됐던 모든 업무를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함께 폐쇄돼 있다. 그는 보편적 찬성을 얻어 **멜기세덱**들의 대표가 됐는데, 그의 비길 데 없는 지혜와 최고의 사랑 그리고 임무에 대한 뛰어난 헌신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동경을 받는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이해했으며 우리와 함께 근무했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충성되고 헌신된 동료 **멜기세덱**인데, 우리 세계에서 이 손님이 지금은 영원토록 **멜기세덱** 본성을 지닌 우주 사역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전부다. 물론 우리는, 10억 년 전에 **멜기세덱**들과 함께 무척 신비스럽게 근무했던 이 색다른 **멜기세덱**이, 자신의 첫 번째 증여 사명을 위해 육신화 했던 바로 그 **미가엘**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기록은 독특하고 유능한 이 **멜기세덱**이 **미가엘**이었음을 특별히 증거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보편적으로 믿는다. 아마 그

any message of possible significance received. On this day a communication was registered on Salvington from the Melchizedek sphere, the headquarters of that order in Nebadon, which simply recorded this extraordinary and never-before-heard-of transaction: “At noon today there appeared on the receiving field of this world a strange Melchizedek Son, not of our number but wholly like our order. He was accompanied by a solitary omniaphim who bore credentials from Uversa and presented orders addressed to our chief, derived from the Ancients of Days and concurred in by Immanuel of Salvington, directing that this new Melchizedek Son be received into our order and assigned to the emergency service of the Melchizedeks of Nebadon. And it has been so ordered; it has been done.”

119:1.4 (1310.1) And this is about all that appears on the records of Salvington regarding the first Michael bestowal. Nothing more appears until after on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when there was recorded the fact of Michael's return and unannounced resumption of the direction of universe affairs. But a strange record is to be found on the Melchizedek world, a recital of the service of this unique Melchizedek Son of the emergency corps of that age. This record is preserved in a simple temple which now occupies the foreground of the home of the Father Melchizedek, and it comprises the narration of the service of this transitory Melchizedek Son in connection with his assignment to twenty-four missions of universe emergency. And this record, which I have so recently reviewed, ends thus:

119:1.5 (1310.2) “And at noon on this day, without previous announcement and witnessed by only three of our brotherhood, this visiting Son of our order disappeared from our world as he came, accompanied only by a solitary omniaphim; and this record is now closed with the certification that this visitor lived as a Melchizedek, in the likeness of a Melchizedek he worked as a Melchizedek, and he faithfully performed all of his assignments as an emergency Son of our order. By universal consent he has become chief of Melchizedeks, having earned our love and adoration by his matchless wisdom, supreme love, and superb devotion to duty. He loved us, understood us, and served with us, and forever we are his loyal and devoted fellow Melchizedeks, for this stranger on our world has now eternally become a universe minister of Melchizedek nature.”

119:1.6 (1310.3) And that is all I am permitted to tell you of the first bestowal of Michael. We, of course, fully understand that this strange Melchizedek who so mysteriously served with the Melchizedeks a billion years ago was none other than the incarnated Michael on the mission of his first bestowal. The records do not specifically state that this unique and efficient Melchizedek was

사실에 대한 실제 설명이, **소나링톤**의 기록 이외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며, 그 비밀한 세계의 기록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신성한 **아들**들의 이 신성시되는 세계에서만, 육신화와 증여에 대한 그 비밀이 완전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모두 **미가엘** 증여들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른다. 한 우주의 통치자, 즉 **멜기세덱**들의 창조자가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그들 가운데 하나로, 즉 100년 동안 한 **멜기세덱 아들**로서 일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뤄졌다.

2. 두 번째 증여

미가엘이 **멜기세덱**으로서 자신을 증여한 후 거의 1억 5천만 년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모든 것이 잘 이뤄졌고, 그 후에 37 번째 성좌의 11 번째 체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계 주권자**인 어느 **라노난덱 아들**의 오해가 관련됐는데, 그것은 **성좌 아버지**들의 판결을 받았고, 그 성좌의 **낙원** 조연자인 **충실 항존자**들의 공인을 받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체계 주권자**는 그 판결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불만족한 상태로 100년 이상 지난 후에, **네바돈** 우주에서 이제까지 유발됐던, **창조주 아들**의 주권에 대항하는 가장 널리 퍼지고 비참한 반역 가운데 하나에 동역자들을 이끌고 참여했는데, 그 반역은 **우버사**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행동으로 판결을 받고 종료된 지 오래다.

반역한 이 **체계 주권자 루텐시아**는, **네바돈** 표준시간으로 20년 이상 자신의 본부 행성에서 최고의 권위에 있었으며; 그 후에 **지고자**는 **우버사**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를 격리하라고 명령했고, 투쟁으로 비탄에 젖고 혼동된, 그 체계에 속한 인간 거주 세계들의 지휘를 담당할 새 **체계 주권자**를 지명해달라고, **살빙톤** 통치자들에게 요청했다.

살빙톤에 이 요청이 접수됨과 동시에, **미가엘**은, 우주 본부에서 자리를 비울 뜻을 표시하는, 두 번째 색다른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내 **낙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 즉 **합동 항존자**의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증여와 관련하여 그가 떠나던 때에 목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가엘**은 다시 자신의 본부 구체를 떠났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 작별이 있는 지 3일 후에, 새롭게 알려지지 않은 일원이 **네바돈**의 1차 **라노난덱**

Michael, but it is universally believed that he was. Probably the actual statement of that fact cannot be found outside of the records of Sonarington, and the records of that secret world are not open to us. Only on this sacred world of the divine Sons are the mysteries of incarnation and bestowal fully known. We all know of the facts of the Michael bestowals, but we do not understand how they are effected. We do not know how the ruler of a universe, the creator of the Melchizedeks, can so suddenly and mysteriously become one of their number and, as one of them, live among them and work as a Melchizedek Son for one hundred years. But it so happened.

2. THE SECOND BESTOWAL

119:2.1 (1310.4) For almos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fter the Melchizedek bestowal of Michael, all went well in the universe of Nebadon, when trouble began to brew in system 11 of constellation 37. This trouble involved a misunderstanding by a Lanonandek Son, a System Sovereign, which had been adjudicat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approved by the Faithful of Days, the Paradise counselor to that constellation, but the protesting System Sovereign was not fully reconciled to the verdict.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dissatisfaction he led his associates in one of the most widespread and disastrous rebellions against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 ever instigat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a rebellion long since adjudicated and ended by the a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119:2.2 (1311.1) This rebel System Sovereign, Lutentia, reigned supreme on his headquarters planet for more than twenty years of standard Nebadon time; whereupon, the Most Highs, with approval from Uversa, ordered his segregation and requisitioned the Salvington rulers for the designation of a new System Sovereign to assume direction of that strife-torn and confused system of inhabited worlds.

119:2.3 (1311.2) Simultaneously with the reception of this request on Salvington, Michael initiated the second of those extraordinary proclamations of intention to be absent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purpose of “doing the bidding of my Paradise Father,” promising to “return in due season” and concentrating all authority in the hand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the Union of Days.

119:2.4 (1311.3) And then, by the same technique observed at the time of his departure in connection with the Melchizedek bestowal, Michael again took leave of his headquarters sphere. Three days after this unexplained leave-taking there appeared among the reserve corps of the primary

아들들의 예비 단체에 나타났다. 새로운 **이 아들**은 정오 무렵에 나타났고, 단독 제3스랍을 대동하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지참했고, 이것은 **살빙톤의 임마누엘**의 공인을 받았으며, 물러난 **루텐시아**의 후계자 자리에, 새 주권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권을 갖는 대리 **체계 주권자**로서, 새로운 **이 아들**을, 37_번 성좌의 11_번 체계에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우주 시간으로 17년이 넘는 동안,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임시 통치자가 직무를 경영했으며, 혼동되고 문란한 이 지역 체계의 어려운 일들을 판결했다. 그전에 어떤 **체계 주권자**도, 이보다 더 열렬한 사랑을 받고 더 널리 존경받으며 높이 평가된 적이 없었다. 새로운 이 통치자는, 응보와 자비 면에서 교란된 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모든 백성을 공들여 보살폈는데, 반역한 전임자에게, 그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임마누엘**에게 사과하기만 한다면 그 체계 직위의 권한을 공유하는 특권을 제의할 정도였다. 그러나 **루텐시아**는, 새롭고 낯선 이 체계 통치자가, 아주 최근에 자신이 공공연히 반항했던 바로 그 **우주 통치자인 미가엘**이었음을 잘 알면서, 이런 자비로운 권유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오도되고 현혹됐던 그의 추종자들은, 그 시대에 **팔로니아** 체계의 **구원주 주권자**로서 알려진 이 새 통치자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새로 임명된 **체계 주권자**가 거기에 도착한 중대한 날이 도래했는데, 그는 폐위된 **루텐시아**의 영구한 후계자로서 우주 당국으로부터 임명받았고, **팔로니아** 전체는 **네바돈**에서 알려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자한 체계 통치자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다. 그는 체계 전체의 사랑을 받았고 **라노난덱 아들**들로 이뤄진 모든 동료 집단으로부터 찬미 받았다. 그는 아무런 예식 없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가 체계 본부를 떠날 때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심지어 죄를 범한 그의 전임자도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옳바르고 정당했습니다. 내가 **낙원** 통치를 계속 거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이 옳바르고 자비로운 통치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 체계의 이 임시 통치자는, 경영을 맡아서 잠시 체류했던 행성을 떠났으며, 한편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에, **미가엘**은 **살빙톤**에 나타났고, **네바돈** 우주의 통치를 재개했다. **미가엘**의 주권과 권세를 승진시킨다는, 세 번째 **우버사** 선포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선포는 그가 **네바돈**에 도착했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증여를 완성한 직후에 이뤄졌으며,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 즉 **라노난덱** 사명이 종료된 다음에 있었다.

Lanonandek Sons of Nebadon, a new and unknown member. This new Son appeared at noon, unannounced and accompanied by a lone tertiaphim who bore credentials from the Uversa Ancients of Days,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directing that this new Son be assigned to system 11 of constellation 37 as the successor of the deposed Lutentia and with full authority as acting System Sovereign pending the appointment of a new sovereign.

119:2.5 (1311.4) For more than seventeen years of universe time this strange and unknown temporary ruler administered the affairs and wisely adjudicated the difficulties of this confused and demoralized local system. No System Sovereign was ever more ardently loved or more widely honored and respected. In justice and mercy this new ruler set the turbulent system in order while he painstakingly ministered to all his subjects, even offering his rebellious predecessor the privilege of sharing the system throne of authority if he would only apologize to Immanuel for his indiscretions. But Lutentia spurned these overtures of mercy, well knowing that this new and strange System Sovereign was none other than Michael, the very universe ruler whom he had so recently defied. But millions of his misguided and deluded followers accepted the forgiveness of this new ruler, known in that age as the Savior Sovereign of the system of Palonia.

119:2.6 (1312.5) And then came that eventful day on which there arrived the newly appointed System Sovereign, designated by the universe authorities as the permanent successor of the deposed Lutentia, and all Palonia mourned the departure of the most noble and the most benign system ruler that Nebadon had ever known. He was beloved by all the system and adored by his fellows of all groups of the Lanonandek Sons. His departure was not unceremonious; a great celebration was arranged when he left the system headquarters. Even his erring predecessor sent this message: “Just and righteous are you in all your ways. While I continue in rejection of the Paradise rule, I am compelled to confess that you are a just and merciful administrator.”

119:2.7 (1312.1) And then did this transient ruler of a rebellious system take leave of the planet of his short administrative sojourn, while on the third day thereafter Michael appeared on Salvington and resumed the direction of the universe of Nebadon. There soon followed the third Uversa proclamation of the advancing jurisdiction of the sovereignty and authority of Michael. The first proclamation was made at the time of his arrival in Nebadon, the second was issued so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elchizedek bestowal, and now the third follow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second or Lanonandek mission.

3. 세 번째 증여

살빙톤의 최고 협의회는, 61_번 성좌의 87_번 체계에 있는 217_번 행성에 **물질 아들**을 파송해서 도와달라는,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밤급 마무리했다. 이때 이 행성은 또 다른 **체계 주권자**가 타락해버린, 인간거주 세계들의 체계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전체 **네바돈**에서 그런 반역 가운데 두 번째였다.

미가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행성의 **생명 운반자**들의 청원에 대한 조치는, **임마누엘**이 고려하고 이에 대한 그의 보고가 고려되는 동안 연기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유별난 일을 예상하면서 미결(未決) 상태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을 잘 기억한다. **미가엘**이 나서서 우주 감독을 **임마누엘**의 손에 맡기는 한편, 천상(天上)의 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가브리엘**에게 위탁했고, 경영 책임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우주 어머니 영**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살빙톤**의 파견 장소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예상됐던 대로,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아무 예고 없이, 61_번 성좌에서 87_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낯선 **물질 아들**이 출현했는데, 단독 제2스랍과 동행했고,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의 공인을 받았으며,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보증 받았다. 대리 **체계 주권자**는, 새롭고 신비로운 이 **물질 아들**이 217_번 세계의 대리 **행성 왕자**로서 활동하도록 즉시 지명했으며, 이런 지명은 즉시 61_번 성좌 **지도자**들의 비준을 받았다.

독특한 이 **물질 아들**은 이처럼, 외부 우주와 어떤 직접 교신도 없는 괴로운 처지의 체계에 자리잡은, 분리와 반역이 있던 한 고립된 세계에서 힘든 생애를 시작했는데, 행성 시간으로 온전히 한 세대 동안 혼자서 일했다. 이 비상대책 **물질 아들**은, 직무에 태만한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들 전부가 회개하고 교정되도록 했고, 여러 지방우주에 설립된 대로 **낙원**의 통치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길로 그 행성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때가 이르자, 원기를 회복하고 구체된 이 세계에 한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행성 통치자로서 정식으로 임명되자, 임시, 즉 비상사태 **행성 왕자**는 공식적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정오에 사라졌다.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에, **미가엘**은 **살빙톤**에 있는, 자신이 늘 있던 장소에 나타났다, 연방우주 방송은, **네바돈**에서 **미가엘**의 주권이 더 증진됐음을 알리는 **태고 항존자**들의 네 번째 선언을 즉시 발표했다.

3. THE THIRD BESTOWAL

119:3.1 (1312.2) The supreme council on Salvington had just finished the consideration of the call of the Life Carriers on planet 217 in system 87 in constellation 61 for the dispatch to their assistance of a Material Son. Now this planet was situated in a system of inhabited worlds where another System Sovereign had gone astray, the second such rebellion in all Nebadon up to that time.

119:3.2 (1312.3) Upon the request of Michael, action on the petition of the Life Carriers of this planet was deferred pending its consideration by Immanuel and his report thereon. This was an irregular procedure, and I well remember how we all anticipated something unusual, and we were not long held in suspense. Michael proceeded to place universe direction in the hands of Immanuel, while he intrusted command of the celestial forces to Gabriel, and having thus disposed of hi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he took leav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vanished from the dispatching field of Salvington precisely as he had done on two previous occasions.

119:3.3 (1312.4) And, as might have been expected, on the third day thereafter there appeared, unannounce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system 87 in constellation 61, a strange Material Son, accompanied by a lone seconaphim, accredited by the Uversa Ancients of Days, and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Immediately the acting System Sovereign appointed this new and mysterious Material Son acting Planetary Prince of world 217, and this designation was at once confirmed by the Most Highs of constellation 61.

119:3.4 (1312.5) Thus did this unique Material Son begin his difficult career on a quarantined world of secession and rebellion, located in a beleaguered system without any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universe, working alone for one whole generation of planetary time. This emergency Material Son effected the repentance and reclamation of the defaulting Planetary Prince and his entire staff and witnessed the restoration of the planet to the loyal service of the Paradise rule as established in the local universes. In due tim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rrived on this rejuvenated and redeemed world, and when they had been duly installed as visible planetary rulers, the transitory or emergency Planetary Prince took formal leave, disappearing at noon one day. On the third day thereafter, Michael appeared in his accustomed place on Salvington, and very soon the superuniverse broadcasts carried the fourth proclam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nouncing the further advancement of the sovereignty of Michael in Nebadon.

혼란에 빠진 이 행성에서 이 **물질 아들**이 괴로운 환경을 이겨낸,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승씨에 대해 설명하도록 허락받지 못해서 유감이다. 고립된 이 세계가 교정 받은 것은, **네바돈** 전체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으로 감동적인 장(章)들 가운데 하나다. 이 사명이 끝났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통치자가, 왜 어느 하위 계층의 지성적 존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증여에 거듭 참여하기를 선택했는지, 온 **네바돈**이 명백히 알게 됐다.

멜기세덱 아들로서, 그리고 나서 **라노난덱 아들**로서, 그 다음에는 **물질 아들**로서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한 것은, 모두 똑같이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증여된 집단의 완전히 성장한 한 개인으로서 나타났다. 그런 육신화의 비밀은, **소나링톤**의 신성시되는 구체에 있는 기록의 내부 궤도에 접근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결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고립과 반역이 있었던 한 세계의 **행성 왕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증여가 있는 후에, **네바돈**에 있는 어떤 **물질 아들**과 딸도,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행성 사명이 어렵다고 비난하도록 유혹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물질 아들**들은, 우주의 **창조주 아들**이라는, 총명한 주권자와 연민의 정을 지닌 친구, 즉 그들이 단련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단련과 시험을 받은” 존재가 있음을 항상 알고 있다.

이런 각 사명이 있는 다음에는, 그 우주에서 지원된 모든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이 더욱 봉사하고 충성하는 시대가 뒤따랐고, 한편 이어지는 각 증여 시대는, 우주 경영의 모든 방법과 정부의 모든 기법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증여가 있는 후에 어떤 **물질 아들** 또는 딸도, 고의로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결코 의식하면서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오직 속임수와 꾀변을 통해서만, 최근에 높은 유형의 반역 인격체들이 **아담**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4. 네 번째 증여

미가엘이 **네바돈** 정부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의 손에 맡긴 것은, **우버사**에서 1,000년마다 있는 정기 출석점호 가운데 하나가 끝날 무렵이었으며; 물론, 그런 행동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네 번째 증여 사명을 위해서 그가 사라질 것에 대비했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가 곧 **살빙톤** 파견장소로 나아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119:3.5 (1312.6) I regret that I do not have permission to narrate the patience, fortitude, and skill with which this Material Son met the trying situations on this confused planet. The reclamation of this isolated worl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ly touching chapters in the annals of salvation throughout Nebadon. By the end of this mission it had become evident to all Nebadon as to why their beloved ruler chose to engage in these repeated bestowals in the likeness of some subordinate order of intelligent being.

119:3.6 (1313.1) The bestowals of Michael as a Melchizedek Son, then as a Lanonandek Son, and next as a Material Son are all equally mysterious and beyond explanation. In each instance he appeared *suddenly* and as a fully developed individual of the bestowal group. The mystery of such incarnations will never be known except to those who have access to the inner circle of the records on the sacred sphere of Sonarington.

119:3.7 (1313.2) Never, since this marvelous bestowal as the Planetary Prince of a world in isolation and rebellion, have any of the Material Sons or Daughters in Nebadon been tempted to complain of their assignments or to find fault with the difficulties of their planetary missions. For all time the Material Sons know that in the Creator Son of the universe they have an understanding sovereign and a sympathetic friend, one who has in “all points been tried and tested,” even as they must also be tried and tested.

119:3.8 (1313.3) Each of these missions was followed by an age of increasing service and loyalty among all celestial intelligences of universe origin, while each succeeding bestowal age was characterized by advancement and improvement in all method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in all techniques of government. Since this bestowal no Material Son or Daughter has ever knowingly joined in rebellion against Michael; they love and honor him too devotedly ever consciously to reject him. Only through deception and sophistry have the Adams of recent times been led astray by higher types of rebel personalities.

4. THE FOURTH BESTOWAL

119:4.1 (1313.4) It was at the end of one of the periodic millennial roll calls of Uversa that Michael proceeded to place the government of Nebadon in the hands of Immanuel and Gabriel; and, of course, recalling what had happened in times past following such action, we all prepared to witness Michael's disappearance on his fourth mission of bestowal, and we were not long kept waiting, for he shortly went out upon the Salvington dispatching field and was lost to our view.

증여를 위해서 사라진 후 셋째 날에, 우리는 **우버사**로 보내는 우주 방송에서 **네바돈**의 스랍 본부로부터 이런 의미심장한 소식 항목을 목격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스라빔의 예고 없는 방문을 보고하겠는데, 독자적인 한 최고스랍과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동행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 스랍은, **네바돈** 계층의 자격이 있고 또한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지니고 있으며,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보증 받았습니다. 겸사한 결과,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의 천사들 가운데 최고 계층에 속했으며, 교육 상담자 단체에 이미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스랍으로 증여된 기간에, 즉 우주 표준시간으로 40년이 넘도록 **미가엘**은 **살빙톤**에 없었다. 이 시기 동안에 그는 가르치는 스랍 조연자, 즉 26명의 상이한 주요 선생에게 너희가 개인 비서라고 일컬을만한 존재로서 배속됐는데, 22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활약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 즉 최종 임무는, **네바돈** 우주에서 3_번 성좌의 84_번 체계에 있는 462_번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사명에 소속된 조연자이자 협조자로서의 임무였다.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은 이렇게 배정된 7년 내내, 그의 스랍 동역자의 신분에 걸맞다고 전적으로 납득된 적이 전혀 없었다. 정말로, 그 시기 동안 모든 스라빔에게 특별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됐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스라빔으로 변장하고 우주에 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사명을 수행하기까지는, 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내내, 피조물로서 증여하는 사명에 임하고 있는 우주 **주권자**를 눈치 채지 못하고 접대했음을,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알아보지 않을까 염려하여, 최고 스라빔이 특별히 배려하며 주목했다. 그리하여 천사들에 관해서, 그들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인 그가, “스랍 인격과 비슷한 상태에서 모든 면에 단련과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영원한 사실로 남게 됐다.

이 연속되는 증여가 점점 더 낮은 형태의 우주 생명체 본성을 가짐에 따라서, **가브리엘**은 이런 육신화 모험에 점점 더 많이 관여했는데, 증여된 **미가엘**과 대리 우주 통치자인 **임마누엘** 사이에 우주 연락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미가엘은 이제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아들**들 가운데 세 계층: 즉 **멜기세덱**, **라노난덱**, 및 **물질 아들** 계층에서 증여하는 체험을 거쳤다. 그 다음에 그는, 의지를 지닌 가장 낮은 형태의 피조물, 즉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의 다양한 국면에 눈을 돌리기 전에, 한 최고 스라빔으로서 천사의 생애와 비슷한 상태로 인격화할 만큼 자신을 낮췄다.

119:4.2 (1313.5) On the third day after this bestowal disappearance we observed, in the universe broadcasts to Uversa, this significant news item from the seraphic headquarters of Nebadon: “Reporting the unannounced arrival of an unknown seraphim, accompanied by a solitary supernaphim and Gabriel of Salvington. This unregistered seraphim qualifies as of the Nebadon order and bears credentials from the Uversa Ancients of Days,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This seraphim tests out as belonging to the supreme order of the angels of a local universe and has already been assigned to the corps of the teaching counselors.”

119:4.3 (1313.6) Michael was absent from Salvington during this, the seraphic bestowal, for a period of over forty standard universe years. During this time he was attached as a seraphic teaching counselor, what you might denominate a private secretary, to twenty-six different master teachers, functioning on twenty-two different worlds. His last or terminal assignment was as counselor and helper attached to a bestowal mission of a Trinity Teacher Son on world 462 in system 84 of constellation 3 in the universe of Nebadon.

119:4.4 (1314.1) Never, throughout the seven years of this assignment, was this Trinity Teacher Son wholly persuaded as to the identity of his seraphic associate. True, all seraphim during that age were regarded with peculiar interest and scrutiny. Full well we all knew that our beloved Sovereign was abroad in the universe, disguised as a seraphim, but never could we be certain of his identity. Never was he positively identified until the time of his attachment to the bestowal mission of this Trinity Teacher Son. But always throughout this era were the supreme seraphim regarded with special solicitude, lest any of us should find that we had unawares been host to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on a mission of creature bestowal. And so it has become forever true, concerning angels, that their Creator and Ruler has been “in all points tried and tested in the likeness of seraphic personality.”

119:4.5 (1314.2) As these successive bestowals partook increasingly of the nature of the lower forms of universe life, Gabriel became more and more an associate of these incarnation adventures, functioning as the universe liaison between the bestowed Michael and the acting universe ruler, Immanuel.

119:4.6 (1314.3) Now has Michael passed through the bestowal experience of three orders of his created universe Sons: the Melchizedeks, the Lanonandeks, and the Material Sons. Next he condescends to personalize in the likeness of angelic life as a supreme seraphim before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various phases of the ascending careers of his lowest form of will

creatures,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ime and space.

5. 다섯 번째 증여

유란시아에서 계산하는 시간으로, 3억 년보다 약간 더 전에, 우리는 **임마누엘**에게 우주 권세를 이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으며, **미가엘**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 경우는, 그의 목적지가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본부인 **우버사**임을 그가 알린 점에서, 이전{以前}의 다른 경우들과 달랐다. 때가 되자 우리 **주권자**가 떠났지만, 연방우주 방송은 **태고 항존자**들의 뜰에 **미가엘**이 도착했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살빙톤**에서 떠난 직후에, **우버사** 방송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성명서가 실렸다: “아무 발표도 번호도 없이, **네바돈** 우주로부터 필사의 기원에 속하는 상승 순례자가 오늘 도착했는데, **살빙톤**의 **임마누엘**로부터 공인받았고, **네바돈**의 **가브리엘**이 동행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존재는 참된 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 교체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우버사**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이븐토드**가 거기에 머물렀던 시절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시간과 공간에서 번호가 없는 이 특별한 순례자가, **우버사**에서는 그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 필사자, 즉 적어도 상승하는 필사자의 영{靈} 단계와 똑같은 모습의 훌륭한 인격체가, **오르본톤** 표준시간으로 11년 동안 **우버사**에서 살았고 활약했다. 이 존재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오르본톤**의 다양한 지방 우주에서 온 동료들과 공통으로, 한 영{靈} 필사자의 의무를 수행했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시험과 단련을 받았으며”, 모든 경우에, 그는 상급자들의 신뢰와 신임을 받기에 마땅함을 입증했고, 한편 그는 어김없이 동료 영들의 존경과 충성스런 찬미를 받았다.

살빙톤에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순례자 영의 생애를 따라다녔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번호가 없고 겸손한 이 순례자 영이 우리 지방우주의 증여된 통치자임을 우리는 잘 알았다. 필사자 진화에서 한 단계의 역할로 육신화한 **미가엘**의 이 첫 번째 출현은, **네바돈** 전체를 짜릿하게 하고 매혹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때서야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성숙되고 완벽하게 훈련된 영 필사자로서, 그리고 **하보나**로 상승하는 한 필사자 집단이 진출할 때까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계속하는 존재로서 **우버사**에 출현했으며; 그 후에 그는 **태고 항존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곧 **가브리엘**과 함께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예식 없이 **우버사**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살빙톤**에 있는 자기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5. THE FIFTH BESTOWAL

119:5.1 (1314.4) A little over three hundred million years ago, as time is reckoned on Urantia, we witnessed another of those transfers of universe authority to Immanuel and observed the preparations of Michael for departure. This occasion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that he announced that his destination was Uversa,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n due time our Sovereign departed, but the broadcasts of the superuniverse never made mention of Michael's arrival at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Shortly after his departure from Salvington there did appear in the Uversa broadcasts this significant statement: “There arrived today an unannounced and unnumbered ascendant pilgrim of mortal origin from the universe of Nebadon,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and accompanied by Gabriel of Nebadon. This unidentified being presents the status of a true spirit and has been received into our fellowship.”

119:5.2 (1314.5) If you should visit Uversa today, you would hear the recounting of the days when Eventod sojourned there, this particular and unknown pilgrim of time and space being known on Uversa by that name. And this ascending mortal, at least a superb personality in the exact likeness of the spirit stage of the ascending mortals, lived and functioned on Uversa for a period of eleven years of Orvonton standard time. This being received the assignments and performed the duties of a spirit mortal in common with his fellows from the various local universes of Orvonton. In “all points he was tested and tried, even as his fellows,” and on all occasions he proved worthy of the confidence and trust of his superiors, while he unfailingly commanded the respect and loyal admiration of his fellow spirits.

119:5.3 (1315.1) On Salvington we followed the career of this spirit pilgrim with consummate interest, knowing full well, by the presence of Gabriel, that this unassuming and unnumbered pilgrim spirit was none other than the bestowed ruler of our local universe. This first appearance of Michael incarnated in the role of one stage of mortal evolution was an event which thrilled and enthralled all Nebadon. We had heard of such things but now we beheld them. He appeared on Uversa as a fully developed and perfectly trained spirit mortal and, as such, continued his career up to the occasion of the advancement of a group of ascending mortals to Havona; whereupon he held converse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immediately, in the company of Gabriel, took

이 증여를 완성하기 전에는, 가장 높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래로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들의 살과 피로 이뤄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과 같은 모습으로 **미가엘**이 육신화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멜기세덱** 학부들은, **미가엘**이 언젠가 육신을 입은 하나의 필사자로서 육신화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여를 위한 가능한 기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미가엘**이 상승하는 필사자의 역할을 이미 몸소 수행했다는 사실은, 지방우주와 연방우주를 거쳐 맨 위까지 피조물을 진보시키는 전체 기획에, 새롭고 증대된 흥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증여의 기법은 신비로 남아있다. 심지어 **가브리엘**도, **낙원 아들**이며 우주 **창조주**인 이 분이, 뜻대로, 자신에게 종속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인격을 띠고 그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6. 여섯 번째 증여

이제 임박한 증여를 준비하기에 **살빙톤** 전체가 익숙했으므로, **미가엘**은 본부 행성에 머무는 자들을 소집했고, 육신화 계획의 남은 부분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섯째 성좌의 본부 행성에 있는 **지고자 아버지**들의 뜰에서,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生涯)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살빙톤**을 곧 떠나게 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를 처음 들었다.

미가엘은 여섯 번째 증여를 위해 **살빙톤**을 떠나기 전에, 모여 있는 그 구체 거주민에게 연설했고, 모두가 잘 지켜보는 가운데 떠났는데, 어떤 단독 스랍과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만 동행했다. 우주에 대한 감독이 다시 **임마누엘**에게 위임되는 동안, 경영 책임이 더 널리 분산됐다.

미가엘은 5_번 성좌 본부에 나타났는데, 상승하는 신분의 완전히 성장한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나타났다. 번호가 없는 이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매우 유감인데, 이는 그것이, **유란시아**에서 가졌던 극적이고 비참한 체류 기간도 제외하지 않고,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서 아주 색다르

sudden and unceremonious leave of Uversa, appearing shortly thereafter in his accustomed place on Salvington.

119:5.4 (1315.2) Not until the completion of this bestowal did it finally dawn upon us that Michael was probably going to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his various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from the highest Melchizedeks right on down to the mortals of flesh and blood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About this time the Melchizedek colleges began to teach the probability of Michael's sometime incarnating as a mortal of the flesh, and there occurred much speculation as to the possible technique of such an inexplicable bestowal. That Michael had in person performed in the role of an ascending mortal lent new and added interest to the whole scheme of creature progression all the way up through both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119:5.5 (1315.3) Still, the technique of these successive bestowals remained a mystery. Even Gabriel confesses that he does not comprehend the method whereby this Paradise Son and universe Creator could, at will, assume the personality and live the life of one of his own subordinate creatures.

6. THE SIXTH BESTOWAL

119:6.1 (1315.4) Now that all Salvington was familiar with the preliminaries of an impending bestowal, Michael called the sojourners on the headquarters planet together and, for the first time, unfolded the remainder of the incarnation plan, announcing that he was soon to leave Salvington for the purpose of assuming the career of a morontia mortal at the courts of the Most High Fathers on the headquarters planet of the fifth constellation. And then we heard for the first time the announcement that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would be made on some evolutionary worl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119:6.2 (1315.5) Before leaving Salvington for the sixth bestowal, Michael addressed the assembled inhabitants of the sphere and departed in full view of everyone, accompanied by a lone seraphim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Nebadon. While the direction of the universe had again been intrusted to Immanuel, there was a wider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119:6.3 (1315.6) Michael appeared on the headquarters of constellation five as a full-fledged morontia mortal of ascending status. I regret that I am forbidden to reveal the details of this unnumbered morontia mortal's career, for it wa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and amazing epochs in Michael's bestowal experience, not even

고 놀라운 시기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내게 부과된 여러 제한 가운데 하나는, **미가엘이 엔단텀**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가졌던, 이 놀라운 생애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이다.

미가엘이 이 모론시아 증여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명백히 드러난 것은, 우리 **창조주**가 동료 피조물이 됐었다는 것, 즉 **우주 주권자**가, 자신의 영역들에 있는 피조 지성체 가운데 가장 낮은 형태에게도, 친구가 되고 인정 많은 협조자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주 경영에서 피조물의 관점에 대한 이런 점진적 습득을 우리는 이미 유념했는데, 그것이 점차 나타났기 때문이었으며, 그렇지만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더 확실하게 됐고, 그가 **유란시아**에서 목수의 아들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욱 확실해졌다.

미가엘이 모론시아 증여에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가브리엘**로부터 미리 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살빙톤**에서 적절한 환영식을 준비했다. 수백만의 존재가 **네바돈**의 성좌 본부 세계들로부터 모였으며, **살빙톤**에 가까운 세계들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존재는, 자기 우주의 통치권을 되찾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자기 피조물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관심 가졌던 **주권자**를 환영하고 그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많은 연설에 대한 답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의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고 간절히 이해하고자 하는 **낙원 아들**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가엘**이 **사람의 아들**(人子)로서 **유란시아** 모험에 발을 내디딘 그 시 각까지, 그가 머문 성좌 전체의 물질 세계들로부터 모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진화로 상승하는 모론시아 필사자로 증여되어 육신화한 자로서, **엔단텀**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주권 통치자**가 세운 많은 업적에 대해, 온 **네바돈**이 계속 토의했다.

7.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

수만 년 동안 우리는 모두, **미가엘**의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를 고대했다. **가브리엘**은 이 최종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뤄지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최고점에 달한 이 모험의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미가엘이 자신의 마지막 증여 상영관으로 **유란시아**를 선택했다는 공개 발표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태만에 대해서 배운 직후에 이뤄졌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는 세계는, 3만 5천 년이 넘는 동안, 전체 우주 협의회들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란시아** 증여의 어느 과

excepting his dramatic and tragic sojourn on Urantia. But among the many restrictions imposed upon me in accepting this commission is one which forbids my undertaking to unfold the details of this wonderful career of Michael as the morontia mortal of Endantum.

119:6.4 (1316.1) When Michael returned from this morontia bestowal, it was apparent to all of us that our Creator had become a fellow creature, that the Universe Sovereign was also the friend and sympathetic helper of even the lowest form of created intelligence in his realms. We had noted this progressive acquirement of the creature's viewpoint in universe administration before this, for it had been gradually appearing, but it became more appar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orontia mortal bestowal, even still more so after his return from the career of the carpenter's son on Urantia.

119:6.5 (1316.2) We were informed in advance by Gabriel of the time of Michael's release from the morontia bestowal, and accordingly we arranged a suitable reception on Salvington. Millions upon millions of beings were assembled from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of Nebadon, and a majority of the sojourners on the worlds adjacent to Salvington were gathered together to welcome him back to the rulership of his universe. In response to our many addresses of welcome and expressions of appreciation of a Sovereign so vitally interested in his creatures, he only replied: "I have simply been about my Father's business. I am only doing the pleasure of the Paradise Sons who love and crave to understand their creatures."

119:6.6 (1316.3) But from that day down to the hour when Michael embarked upon his Urantia adventure as the Son of Man, all Nebadon continued to discuss the many exploits of their Sovereign Ruler as he functioned on Endantum as the bestowal incarnation of a morontia mortal of evolutionary ascension, being in all points tested like his fellows assembled from the material worlds of the entire constellation of his sojourn.

7.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119:7.1 (1316.4)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we all looked forward to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of Michael. Gabriel had taught us that this terminal bestowal would be mad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we were wholly ignorant of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this culminating adventure.

119:7.2 (1316.5) The public announcement that Michael had selected Urantia as the theater for his final bestowal was made shortly after we learned about the default of Adam and Eve. And thus, for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years, your world occupied a very conspicuous place in the councils

정에서도 (육신화의 신비 이외에)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마침내 승리해서 최고 **우주 주권자**로서 **살빙톤**으로 돌아 오기까지, 작지만 매우 명예로운 너희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가장 온전하게 우주에 공개됐다.

우리는 이것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건 자체가 발생될 때까지, **미가엘**이 그 영역의 무력한 한 아기로 땅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그가 증여되기로 선택한 인격체 집단 가운데 온전히 성장한 개인으로서 항상 나타났었으며, **베들레헴**의 아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방송이 **살빙톤**에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창조주**이며 친구인 그가, 무력한 한 아기로 증여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세에서 명백하게 위협 받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최종 필사자 증여가, **네바돈** 우주의 명백한 최고 주권자로서의 영원한 지위를 그에게 부여할 것임도 알게 됐다. 지구 시간으로 3분의 1세기{世紀} 동안, 이 지방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관심이 **유란시아**에 집중됐다. 모든 지성체는 마지막 증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타니아**에서 있었던 **루시퍼** 반역과 **유란시아**에서 **캘리개스차**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듯이, 인간 육체를 닮은 초라한 형체 속에서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기 위해 우리 통치자가 자신을 낮췄을 때 일어나게 될 갈등이 얼마나 맹렬할지, 우리는 잘 알았다.

유대인 아기인 **요셉**의 아들 **예슈아**는, 이 특별한 아기가 **낙원**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 지방우주의 모든 사물과 존재의 창조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육신화였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든 아기와 마찬가지로 잉태됐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슈**라는 인간 형체 속에 **신격**이 육신화되는 이 신비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기원과는 달리,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과 비슷한 형태로 **창조주**가 육신화 됐던 그 기법과 방법을, 너희는 영원 속에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소나링톤**의 비밀이며, 그런 신비는, 증여 체험을 통과한 그 신성한 **아들**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알려진다.

땅에 있는 어떤 현자{賢者}들은 **미가엘**의 임박한 도래를 알았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영적 통찰력을 가진 이 현자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중도 피조물들을 통해서, 스라빔이 한 무리의 **갈대아** 제사장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아르드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먼저 배정됐던 스라빔이, **아르드**

of the entire universe. There was no secrecy (aside from the incarnation mystery) connected with any step in the Urantia bestowal. From first to last, up to the final and triumphant return of Michael to Salvington as supreme Universe Sovereign, there was the fullest universe publicity of all that transpired on your small but highly honored world.

119:7.3 (1316.6) While we believed that this would be the method, we never knew, until the time of the event itself, that Michael would appear on earth as a helpless infant of the realm. Theretofore had he always appeared as a fully developed individual of the personality group of the bestowal selection, and it was a thrilling announcement which was broadcast from Salvington telling that the babe of Bethlehem had been born on Urantia.

119:7.4 (1316.7) We then not only realized that our Creator and friend was taking the most precarious step in all his career, apparently risking his position and authority on this bestowal as a helpless infant, but we also understood that his experience in this final and mortal bestowal would eternally enthrone him as the undisputed and supreme sovereign of the universe of Nebadon. For a third of a century of earth time all eyes in all parts of this local universe were focused on Urantia. All intelligences realized that the last bestowal was in progress, and as we had long known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and of the Caligastia disaffection on Urantia, we well understood the intensity of the struggle which would ensue when our ruler condescended to incarnate on Urantia in the humble form and likeness of mortal flesh.

119:7.5 (1317.1) Joshua ben Joseph, the Jewish baby, was conceived and was born into the world just as all other babies before and since *except* that this particular baby was the incarnation of Michael of Nebadon, a divine Son of Paradise and the creator of all this local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And this mystery of the incarnation of Deity within the human form of Jesus, otherwise of natural origin on the world, will forever remain unsolved. Even in eternity you will never know the technique and method of the incarnation of the Creator in the form and likeness of his creatures. That is the secret of Sonarington, and such mysteries ar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ose divine Sons who have passed through the bestowal experience.

119:7.6 (1317.2) Certain wise men of earth knew of Michael's impending arrival. Through the contacts of one world with another, these wise men of spiritual insight learned of the forthcoming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And the seraphim did, through the midway creatures, make announcement to a group of Chaldean priests whose leader was Ardnnon. These men of God visited the newborn child in the manger. The only supernatural event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논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이었다.

예수의 인간 부모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세대에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육신화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 종족과 시대의 어린이들이 겪는 평범한 방식으로 자라났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이야기, 즉 너희가 사는 세계에 **창조주 아들**이 필사 존재로 중여됐다는 내용은 본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다.

8. 미가엘의 증여 이후 신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최종 증여에 성공한 뒤에,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서, **태고 창조**자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지방우주의 확립된 지휘자로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정도 받았다. 그가 **살빙톤**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미가엘**은, **네바돈**의 확고한 통치자로서 선포됐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여덟 번째 선포가 **우버사**로부터 도착했고, 또한 **낙원**으로부터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선언문이 도래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합일체를 우주의 유일한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고, **살빙톤**에 주둔하는 **합동 창조자**에게 **낙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성좌 본부에 있는 **충실 창조자**들 역시 **지고자**들 협의회에서 물리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미가엘**은 조연과 협동을 제공하는 **삼위일체 아들**들의 철수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살빙톤**에 모아놓고 그들이 **네바돈**에서 영원토록 임무를 맡아줄 것을 친히 부탁했다. 그들은, 이 요청에 따르고 싶다는 바램을, **낙원**에 있는 자신의 지휘자들에게 표명했으며,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낙원**의 분리 명령이 발효됐는데, 중앙우주에 소속된 이 **아들**들을 **네바돈**의 **미가엘**의 법정에 영원히 배속시켰다.

미가엘이 증여 생애를 마치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최고 권세를 최종적으로 확립하기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10억 년이 걸렸다. **미가엘**은 창조자로서 태어났고, 통치자로서 교육받았으며, 관리자로서 훈련받았지만, 그 주권을 체험으로 얻도록 요구됐다. 그리하여 너희의 작은 세계는, 자신이 만든 우주에 대한 무제한의 통제 및 지휘 권한을 얻기 위해서 각 **낙원 창조주 아들**에게 요구되는 체험을 **미가엘**이 완성한 경기장으로, 온 **네바돈**에 두루 알려지게 됐다. 너희가 지방우주를 상승함에 따라서, **미가엘**의 이전{以前} 증여들에 관계된 인격체들의 이상{理想}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Jesus was this announcement to Ardnnon and his associates by the seraphim of former attachment to Adam and Eve in the first garden.

119:7.7 (1317.3) Jesus' human parents were average people of their day and generation, and this incarnated Son of God was thus born of woman and was reared in the ordinary manner of the children of that race and age.

119:7.8 (1317.4) The story of Michael's sojourn on Urantia, the narrative of the mortal bestowal of the Creator Son on your world, is a matter beyond the scope and purpose of this narrative.

8. MICHAEL'S POSTBESTOWAL STATUS

119:8.1 (1317.5) After Michael's final and successful bestowal on Urantia he was not only accepted by the Ancients of Days as sovereign ruler of Nebadon, but he was also recognized by the Universal Father as the established director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Upon his return to Salvington this Michael,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was proclaimed the settled ruler of Nebadon. From Uversa came the eighth proclamation of Michael's sovereignty, while from Paradise came the joint pronounce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constituting this union of God and man sole head of the universe and directing the Union of Days stationed on Salvington to signify his intention of withdrawing to Paradise. The Faithfuls of Day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ere also instructed to retire from the councils of the Most Highs. But Michael would not consent to the withdrawal of the Trinity Sons of counsel and co-operation. He assembled them on Salvington and personally requested them forever to remain on duty in Nebadon. They signified their desire to comply with this request to their directors on Paradise, and shortly thereafter there were issued those mandates of Paradise divorcement which forever attached these Sons of the central universe to the court of Michael of Nebadon.

119:8.2 (1318.1) It required almost one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to complete the bestowal career of Michael and to effect the final establishment of his supreme authority in the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Michael was born a creator, educated an administrator, trained an executive, but he was required to earn his sovereignty by experience. And thus has your little world become known throughout all Nebadon as the arena wherein Michael completed the experience which is required of every Paradise Creator Son before he is given unlimited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universe of his own making. As you ascend the local universe, you will learn more about the ideals of the personalities concerned in Michael's

자신을 피조물로 증여하는 과정을 완성하면서, **미가엘**은 자신의 주권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하는 주권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 여러 증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창조주 아들**은 피조물 인격체의 다양한 본성을 하강하면서 탐구하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 신격**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계시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종합된 통일은 **최상급 창조주**들이 드러낸 바와 같이, **지존하신 분**의 뜻을 드러낸다.

신격들의 이 다양한 뜻의 양상들은, **일곱 으뜸 영**의 다른 본성들에서 영원히 인격화됐으며, **미가엘**의 각 증여는 이런 신성 형태화들 가운데 하나를 독특하게 계시했다. 그는 **멜기세덱** 증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결합된 뜻을, **라노난덱**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나타냈으며; **아담**으로 자신을 증여했을 때에는 **아버지**와 **영**의 뜻을, 스랍으로 증여했을 때에는 **아들**과 **영**의 뜻을 계시했으며; **우버사**에서 필사자로 증여했을 때에는 **공동 행위자**의 뜻을,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을 묘사했으며; **유란시아** 물질 증여에서는 그가 심지어 살과 피로 이뤄진 한 필사자로서 **만유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다.

일곱 번에 걸친 이 증여의 완성은, **미가엘**의 최고 주권의 독립을 가져왔으며, 또한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주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가엘**의 증여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지존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곱 번에 걸친 증여 전체 총합은 **지존하신 분**을 **네바돈**에 새롭게 계시한 것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체험에서, **미가엘**은, 부분적인 증명가능성으로부터 최상의 유한한 행동으로 향상됨, 그리고 유한절대 기능 잠재성의 최종 해방을 동시에 체험했다.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시_공간을 창조하는 자이지만, 칠중의 **오름 아들 미가엘**은 **궁극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성한 단체의 한 구성원이다.

일곱 으뜸 영에서 나타난 **삼위일체**의 뜻을 계시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창조주 아들**은 **지존자**의 뜻을 드러내는 체험을 거쳤다. **지존자**의 뜻을 계시하는 자로서 활동하면서, **미가엘**은 모든 다른 **오름 아들**과 더불어, 자신을 **지존자**와 영원히 일치시켰다. 그는 현재 우주 시대에 **지존자**를 계시하고, **지존성**의 주권을 실현하는 데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우주 시대에 그가 외부 공간 우주들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서,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지존하신 분**과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previous bestowals.

119:8.3 (1318.2) In completing his creature bestowals, Michael was not only establishing his own sovereignty but also was augmenting the evolving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In the course of these bestowals the Creator Son not only engaged in a descending exploration of the various natures of creature personality, but he also achieved the revelation of the variously diversified wills of the Paradise Deities, whose synthetic unity, as revealed by the Supreme Creators, is revelatory of the will of the Supreme Being.

119:8.4 (1318.3) These various will aspects of the Deities are eternally personalized in the differing natur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ach of Michael's bestowals was peculiarly revelatory of one of these divinity manifestations. On his Melchizedek bestowal he manifested the united will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n his Lanonandek bestowal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on; on the Adamic bestowal he revealed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on the seraphic bestowal the will of the Son and the Spirit; on the Uversa mortal bestowal he portrayed the will of the Conjoint Actor, on the morontia mortal bestowal the will of the Eternal Son; and on the Urantia material bestowal he lived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even as a mortal of flesh and blood.

119:8.5 (1318.4) The completion of these seven bestowals resulted in the liberation of Michael's supreme sovereignty and also in the creation of the possibility for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Nebadon. On none of Michael's bestowals did he reveal God the Supreme, but the sum total of all seven bestowals is a new Nebadon revelation of the Supreme Being.

119:8.6 (1318.5) In the experience of descending from God to man, Michael was concomitantly experiencing the ascent from partiality of manifestability to supremacy of finite action and finality of the liberation of his potential for absonite function. Michael, a Creator Son, is a time-space creator, but Michael, a sevenfold Master Son, is a member of one of the divine corps constituting the Trinity Ultimate.

119:8.7 (1318.6) In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revealing the Seven Master Spirit wills of the Trinity, the Creator Son has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revealing the will of the Supreme. In functioning as a revelator of the will of Supremacy, Michael, together with all other Master Sons, has identified himself eternally with the Supreme. In this universe age he reveals the Supreme and participates in the actu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But in the next universe age we believe he will be collaborating with the Supreme Being in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for and in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유란시아는, 온 **네바돈**에서 감상을 일으키는 성지{聖地}, 즉 인간이 거주하는 천만 세계의 우두머리요, **그리스도 미가엘**, 즉 **네바돈** 전체의 주권자, 영역들을 돌보는 **멜기세덱** 사역자, 체계 구원자, **아담**의 구속자{救贖者}, 스랍의 동료, 상승하는 영들의 동역자, 모론시아 진보자,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했던 **사람의 아들**, 그리고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가 필사자로서 있었던 고향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기록이,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을 일시적으로 증여했던 세계, 즉 **십자가의 세계**로 언젠가 돌아오리라 약속했다고 말하는데, 그 기록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일곱 번에 걸친 증여를 묘사하는 본 문서는, 전해진 일련의 발표문 중에서 63번째 글인데,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때까지, **유란시아**의 역사를 서술하는 여러 인격체들의 후원을 받았다. 본 문서들은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휘 아래서 활동하는, 열두 명으로 이뤄진 **네바돈** 위원회의 공인을 받았다. 우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서기 1935년에, 우리 감독관들이 허락한 기법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구성했고 **영어**로 기록했다.]

119:8.8 (1319.1) Urantia is the sentimental shrine of all Nebadon, the chief of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the mortal home of Christ Michael, sovereign of all Nebadon, a Melchizedek minister to the realms, a system savior, an Adamic redeemer, a seraphic fellow, an associate of ascending spirits, a morontia progressor, a Son of Ma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your record tells the truth when it says that this same Jesus has promised sometime to return to the world of his terminal bestowal, the World of the Cross.

119:8.9 (1319.2) [This paper, depicting the seven bestowals of Christ Michael, is the sixty-third of a series of presentations, sponsored by numerous personalities, narrating the history of Urantia down to the time of Michael's appearance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se papers were authorized by a Nebadon commission of twelve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Mantutia Melchizedek. We indited these narratives and put them in the English language, by a technique authorized by our superiors, in the year A.D. 1935 of Urantia time.]

유랜시아 책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20편.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됨

⇨ 119

유란시아 책

121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20편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됨

섹션

소개

1. 일곱 번째 증여의 위탁임무
2. 증여의 제한 조건
3. 계속된 권고와 조언
4.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들

PAPER 120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2. The Bestowal Limitations
3. Further Counsel and Advice
4. The Incarnation — Making Two One

소개

나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필사{必死} 육신의 모습으로 있던 때의 생애를 다시 기술{記述}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가브리엘**로부터 배정받아서 이 과제를 맡은 계시 위원회의 위원장 **멜기세덱**이며, **창조주 아들**이 그의 우주에 자신을 증여하는 체험의 마지막 국면에 착수하려고 **유란시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밝힐 권한을 부여받았다. 자신이 직접 창조한 지성 존재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여러 계층의 창조된 존재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증여하는 것은, 자신이_만든 사물과 존재들이 사는 우주의 완전한 최고 주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창조주 아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값의 일부분이다.

내가 기술하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다양하게 창조된 지성 존재들 가운데서, 다른 여섯 계층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미 여섯 번 자신을 증여했었다. 그런 후에 그는 의지를 지닌 지성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려고, 그리고, 그 물질 영역의 그런 한 인간으로서, 온갖 우주의 신성한 **낙원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우주 주권을 획득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려고 준비했다.

INTRODUCTION

120:0.1 (1323.1) ASSIGNED by Gabriel to supervise the restatement of the life of Michael when on Urantia an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 the Melchizedek director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intrusted with this task, am authorized to present this narrative of certain events which immediately preceded the Creator Son's arrival on Urantia to embark upon the terminal phase of his universe bestowal experience. To live such identical lives as he imposes upon the intelligent beings of his own creation, thus to bestow himself in the likeness of his various orders of created beings, is a part of the price which every Creator Son must pay for the full and supreme sovereignty of his self-mad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120:0.2 (1323.2) Before the events I am about to delineate, Michael of Nebadon had bestowed himself six times after the similitude of six differing orders of his diverse creation of intelligent beings. Then he prepared to descend upon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 lowest order of his intelligent will creatures, and, as such a human of the material realm, to execute the final act in the drama of the acquirement of universe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the divine Paradise Rul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미가엘은 전술한 이 여러 증여의 각 과정마다, 자신이 창조한 한 집단의 존재들의 유한한 체험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과 협동하는 필수적인 체험 역시 획득했으며, 이 체험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그를 자신이 만든 우주의 주권자로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다. 지나간 지방우주 {地方宇宙} 시간 전체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든지, **미가엘**은 **창조주 아들**로서 개인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창조주 아들**로서 자신이 직접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자기 우주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임마누엘** 및 연합된 **낙원 아들**들이 그 우주에서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창조주 아들**로서, 단순히 자신의 고립된 권한만으로 **네바돈**을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낙원 삼위일체**에게 협조하여 순종하면서, 언젠가 **지존하신 분**의 고양된 통치 특질이 될,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로운 집행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고 그 직무를 경영할 자격을 갖추게 될, 우주 신분상 그런 높은 경지까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올라가기를 원했다. 그는 **창조주 아들**로서 완전한 통치를 바란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분**의 우주 지혜와 신성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로서 최상으로 경영하기를 열망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다양한 계층의 우주 피조물에게 이 일곱 차례의 증여를 이룩하는 동안에, 이중(二重)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첫째로, 그는 모든 **창조주 아들**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피조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체험을 완성하고 있었다. **창조주 아들**은 언제든지 고유의 권한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지만, 오직 일곱 차례의 우주 피조물 증여를 모두 통과한 후에야, **낙원 삼위일체**의 최고 대표자로서 통치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우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영에서 발휘될 수 있는, **낙원 삼위일체**의 최대 권위를 의미하는 특권을, 그는 열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가엘**은, 각 우주 증여(贈與)를 체험하는 동안,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체에서 여러 가지로 조성된 뜻에, 자발적으로 만족스럽게 자신을 종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첫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결합된 뜻에;두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세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에;네 번째 증여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에;다섯 번째 증여에서는 **무한한 영**의 뜻에;여섯 번째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에;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마지막이자 일곱 번째 증여에서는 **만유의 아버지** 뜻에 복종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자신의 지방우주 피조물을 이해하는 체험과, 우주의 **창조주**들의 칠중(七重) 국면의 신성한 뜻을, 자신의 개인 통치권 안에 통합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의 경영은, 모든 자의

120:0.3 (1323.3) In the course of each of these preceding bestowals Michael not only acquired the finite experience of one group of his created beings, but he also acquired an essential experience in Paradise co-operation which would, in and of itself, further contribute to constituting him the sovereign of his self-made universe. At any moment throughout all past local universe time, Michael could have asserted personal sovereignty as a Creator Son and as a Creator Son could have ruled his universe after the manner of his own choosing. In such an event, Immanuel and the associated Paradise Sons would have taken leave of the universe. But Michael did not wish to rule Nebadon merely in his own isolated right, as a Creator Son. He desired to ascend through actual experience in co-operative subordination to the Paradise Trinity to that high place in universe status where he would become qualified to rule his universe and administer its affairs with that perfection of insight and wisdom of execution which will sometime be characteristic of the exalted rule of the Supreme Being. He aspired not to perfection of rule as a Creator Son but to supremacy of administration as the embodiment of the universe wisdom and the divine experience of the Supreme Being.

120:0.4 (1324.1) Michael, therefore, had a double purpose in the making of these seven bestowals upon the various orders of his universe creatures: First, he was completing the required experience in creature understanding which is demanded of all Creator Sons before they assume complete sovereignty. At any time a Creator Son may rule his universe in his own right, but he can rule as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only after passing through the seven universe-creature bestowals. Second, he was aspiring to the privilege of representing the maximum authority of the Paradise Trinity which can be exercised in the direct and personal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Accordingly, did Michael, during the experience of each of his universe bestowals, successfully and acceptably voluntarily subordinate himself to the variously constituted wills of the diverse associations of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That is, on the first bestowal he was subject to the combined will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n the second bestowal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on; on the third bestowal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on the four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Son and the Spirit; on the fif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Infinite Spirit; on the six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Eternal Son; and during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on Urantia, to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120:0.5 (1324.2) Michael, therefore, combines in his personal sovereignty the divine will of the sevenfold phases of the universal Creators with the understanding experience of his local universe

적 인수권{引受權}을 양도했는지라도, 최고로 가능한 권능과 권위를 대표하게 됐다. 그의 능력은, **낙원 신격**들과 숙련된 연합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무한하며; 그의 권위는 우주 피조물 모습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획득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주권은 최상인데, **낙원 신격**의 칠중 관점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피조물의 한 관점을 아주 동일한 시간에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의 최종 증여 시기가 결정되고,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될 행성이 선택되자, **미가엘**은 증여에 앞선 의례적인 회담을 **가브리엘**과 가졌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형이자 **낙원** 조인자인 **임마누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가엘**은, 전에는 **가브리엘**에게 수여된 적이 없었던 우주 경영의 모든 권력을, 이제 **임마누엘**의 보호관리에 위탁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肉身化}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에, **임마누엘**은 그의 **유란시아** 증여 기간에 그의 우주에 대한 보호관리를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곧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필사자로 성장하게 될 때, 그를 위한 육신화 길잡이로서 이바지하게 될 증여 방침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증여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우주 주권 성취만을 목적으로 이 육신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창조주 아들**이 누구에게서도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지존자**를 드러내는 계획표에 이미 동참했으며, 이것은 **낙원 신격**들의 다양한 뜻에 협조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그의 주권은, **지존자** 안에서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신격**의 칠중{七重} 뜻을 실제로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여섯 차례의 증여는, 다양한 **낙원 신격**들 및 그 연합체들을 친히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지시 받았었으며; 이번에는 **합동 향존자**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는 **만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낙원 삼위일체**가 **네바돈** 지방우주에 보내는 대사{大使}다.

이 막강한 **창조주 아들**이, 다시 한 번 **낙원 신격**들의 뜻에, 이번에는 **만유의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한 결과로, 즉각적인 유익과 커다란 보상이 주어졌다. 그렇게 연합하는 순종을 이룩하기로 한 이 결정에 따라서, **미가엘**은 자신의 육신화에서 필사적 사람의 본성뿐 아니라, 만유{萬有}의 **낙원 아버지**의 뜻 역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자신이 **유란시아** 증여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임마누엘**이 **낙원 아버지**의 온전한 권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뿐 아니라, 연방우주의

creatures. Thus has his administration become representative of the greatest possible power and authority although divested of all arbitrary assumptions. His power is unlimited since it is derived from experienced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Deities; his authority is unquestioned inasmuch as it was acquired through actual experience in the likeness of universe creatures; his sovereignty is supreme since it embodie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sevenfold viewpoint of Paradise Deity with the creature viewpoint of time and space.

120:0.6 (1324.3) Having determined the time of his final bestowal and having selected the planet whereon this extraordinary event would take place, Michael held the usual prebestowal conference with Gabriel and then presented himself before his elder brother and Paradise counselor, Immanuel. All powers of universe administration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conferred upon Gabriel, Michael now assigned to the custody of Immanuel. And just before Michael's departure for the Urantia incarnation, Immanuel, in accepting the custody of the universe during the time of the Urantia bestowal, proceeded to impart the bestowal counsel which would serve as the incarnation guide for Michael when he would presently grow up on Urantia as a mortal of the realm.

120:0.7 (1324.4)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Michael had elected to execute this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ubject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The Creator Son required instructions from no one in order to effect this incarnation for the sole purpose of achieving universe sovereignty, but he had embarked upon a program of the revelation of the Supreme which involved co-operative functioning with the diverse wills of the Paradise Deities. Thus his sovereignty, when finally and personally acquired, would actually be all-inclusive of the sevenfold will of Deity as it culminates in the Supreme. He had, therefore, six times previously been instructed by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various Paradise Deities and associations thereof; and now he was instructed by the Union of Days,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cting on behalf of the Universal Father.

120:0.8 (1325.1) There were immediate advantages and tremendous compensations resultant from the willingness of this mighty Creator Son once more voluntarily to subordinate himself to the will of the Paradise Deities, this time to that of the Universal Father. By this decision to effect such associative subordination, Michael would experience in this incarnation, not only the nature of mortal man, but als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And further, he could enter upon this unique bestowal with the complete assurance, not only that Immanuel would exercise the full authority of the

태고 항존자들 역시 그 전체 증여 기간 내내, 그의 영역이 안전할 것임을 이미 선언해 왔다는, 위안을 주는 소식을 지니고, 이 독특한 증여 과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일곱 번째 증여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중대한 행사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 미가엘**)이 된 우주 통치자에게, 이 증여_이전{以前}에 **임마누엘**이 줬던 지시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1. 일곱 번째 증여의 위탁임무

“내 **창조주** 형제여, 나는 당신의 마지막 일곱 번째 우주 증여를 지켜보려고 한다. 당신은 앞선 여섯 차례 위탁임무를 가장 신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실행했으며, 나는 당신이 이번 최종 주권 증여 역시 똑같이 승리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당신이 증여된 구체들에서, 당신이 선택한 계층 가운데 충분히 성숙된 존재로 나타났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행성인 **유란시아**에, 충분히 성숙된 필사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내 동지여, 이것은 당신에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증여에 따른 대가{代價}를 온전히 지불하려고 하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화 하는 완벽한 깨우침을 체험하려고 한다.

“이전{以前}에 당신이 증여됐던 각각의 경우 내내, 당신은 세 분의 **낙원 신격**과 그분들의 신성한 상호연합체들의 뜻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순응시킬 것을 선택해 왔다. 전에 있었던 여러 증여에서, 당신은 **지존자**의 뜻의 일곱 국면 가운데, **낙원 아버지**의 개인적 뜻을 제외한 모든 것에 복종해 왔다. 이제 일곱 번째 증여 내내, 당신이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선택했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당신의 육신화 기간에, 당신의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 관할권을 떠맡겠다.

“**유란시아** 증여에 착수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어느 피조물이든지 제공할 수 있는, 행성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후원과 특별한 보조를 자진해서 벗겨내 왔다. 당신이 창조한 **네바돈**의 자녀들이, 그들의 우주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전한 안내를 위해서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이제 곧 이어질 당신의 필사자 생애의 드러나지 않은 우여곡절 내내,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당신의 **낙원 아버지**께 전적으로 조건 없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증여 체험을 끝내게 될 때, 그들의 지방우주 **창조주**이자 **아버지**로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그토록 한결같이 요구하는 신앙_신뢰의 온전한 의미와 값진 취지를, 당신

Paradise Father in the administration of his universe during his absence on the Urantia bestowal, but also with the comforting knowledge that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had decreed the safety of his realm throughout the entire bestowal period.

120:0.9 (1325.2) And this was the setting of the momentous occasion when Immanuel presented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And from this prebestowal charge of Immanuel to the universe ruler who subsequently became Jesus of Nazareth (Christ Michael) on Urantia, I am permitted to present the following excerpts:

1.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120:1.1 (1325.3) “My Creator brother, I am about to witness your seventh and final universe bestowal. Most faithfully and perfectly have you executed the six previous commissions, and I entertain no thought but that you will be equally triumphant on this, your terminal sovereignty bestowal. Heretofore you have appeared on your bestowal spheres as a fully developed being of the order of your choosing. Now you are about to appear upon Urantia, the disordered and disturbed planet of your choice, not as a fully developed mortal, but as a helpless babe. This, my comrade, will be a new and untried experience for you. You are about to pay the full price of bestowal and to experience the complete enlightenment of the incarnation of a Creator in the likeness of a creature.

120:1.2 (1325.4) “Throughout each of your former bestowals you have voluntarily chosen to subject yourself to the will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nd their divine interassociations. Of the seven phases of the will of the Supreme you have in your previous bestowals been subject to all but the personal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Now that you have elected to be wholly subject to your Father’s will throughout your seventh bestowal, I,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our Father, assume the unqualified jurisdiction of your universe for the time of your incarnation.

120:1.3 (1325.5) “In entering upon the Urantia bestowal, you have voluntarily divested yourself of all extraplanetary support and special assistance such as might be rendered by any creature of your own creation. As your created sons of Nebadon are wholly dependent upon you for safe conduct throughout their universe careers, so now must you become wholly and unreservedly dependent upon your Paradise Father for safe conduct throughout the unrevealed vicissitudes of your ensuing mortal career. And when you shall have finished this bestowal experience, you will know in very truth the full meaning and the rich significance of that faith-trust which you so unvaryingly require

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유란시아** 증여 내내,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당신과 **낙원 아버지** 사이의 중단 없는 교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증여되는 그 세상, 더 나아가 당신이 창조한 우주 전체가, 당신의 **아버지**이며 내 **아버지**이신, 삼라만상의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 더욱 이해하기 쉬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가 완전하게 됨으로 인해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직 **유란시아**에서 지내는 개인 생애와 관련한 일에만 몰두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권세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우주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낙원**의 확인을 받고, 당신이 지금처럼 내게 양도하는 대리자 권세가 아니라,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상의 능력과 관할권을 내 보호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당신의 우주의 안전과 중단 없는 경영을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맡아볼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신실하게 실행함에 대해 **낙원**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권한이 내게 있음을 당신이 확실히 알도록,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의 명령이 방금 내게 통보됐다는 것을 당신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하는 기간 내내, **네바돈**에서 모든 영적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의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필사자로 육신화 하고 나서, 당신의 창조계와 조직체인 이 우주의 무조건적인 최고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서는 어떤 심각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다. 이번에 당신이 육신화 한 사이에, 이 증여로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발생할 어떤 반역의 죄나 폭동을 부추기는 어떤 존재든지 즉각 자동으로 사멸시키도록,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태고 항존자**의 명령을 나는 준수할 것이다. 내 형제여, 내 현존에 내재된, 그리고 **우버사**의 사법 명령권이 덧붙인 **낙원** 권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우주와 그 모든 충성스런 피조물 전체는, 당신이 증여되는 동안에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에 있는 지성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높이 드러낸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갖고 당신의 사명을 진행해도 될 것이다.

“이전에 당신이 자신을 증여했던 각 경우처럼, 나는 형제이자 피신탁자로서 당신의 우주 관할권을 받은 자임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행사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나는 우리 **낙원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당신 대신에 그렇게 행하라는 당신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든 위임된 권한을 돌려받아야 될 적당한 시기라고 당신이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당신의 것이 된다는 점이다. 당신의 증여는 시종일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그

all your creatures to master as a part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 with you as their local universe Creator and Father.

120:1.4 (1326.1) “Throughout your Urantia bestowal you need be concerned with but one thing, the unbroken communion between you and your Paradise Father; and it will be by the perfection of such a relationship that the world of your bestowal, even all the universe of your creation, will behold a new and more understandable revelation of your Father and my Father, the Universal Father of all. Your concern, therefore, has only to do with your personal life on Urantia. I will be fully and efficiently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and unbroken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from the moment of your voluntary relinquishment of authority until you return to us as Universe Sovereign, confirmed by Paradise, and receive back from my hands, not the vicegerent authority which you now surrender to me, but, instead, the supreme power over, and jurisdiction of, your universe.

120:1.5 (1326.2) “And that you may know with assurance that I am empowered to do all that I am now promising (knowing full well that I am the assurance of all Paradise for the faithful performance of my word), I announce to you that there has just been communicated to me a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which will prevent all spiritual jeopardy in Nebadon throughout the period of your voluntary bestowal. From the moment you surrender consciousness, upon the beginning of the mortal incarnation, until you return to us as supreme and unconditional sovereign of this universe of your own creation and organization, nothing of serious import can happen in all Nebadon. In this interim of your incarnation, I hold the orders of the Ancients of Days which unqualifiedly mandate the instantaneous and automatic extinction of any being guilty of rebellion or presuming to instigate insurrec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you are absent on this bestowal. My brother, in view of the authority of Paradise inherent in my presence and augmented by the judicial mandate of Uversa, your universe and all its loyal creatures will be secure during your bestowal. You may proceed upon your mission with but a single thought — the enhanced revelation of our Father to the intelligent beings of your universe.

120:1.6 (1326.3) “As in each of your previous bestowals, I would remind you that I am recipient of your universe jurisdiction as brother-trustee. I exercise all authority and wield all power in your name. I function as would our Paradise Father and in accordance with your explicit request that I thus act in your stead. And such being the fact, all this delegated authority is yours again to exercise at any moment you may see fit to requisition its return. Your bestowal is, throughout, wholly voluntary. As a mortal incarnate in the realm you

세상에서 필사적 육신화 됐을 때, 당신에게는 천상(天上)의 재능이 없겠지만, 당신이 우주 권세를 다시 갖고자 결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신의 양도했던 모든 능력이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능력과 권세를 돌려받기로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뤄질 것임을 기억하기 바라는데, 당신의 **아버지** 뜻에 따라 당신의 우주의 안전한 경영을 그의 현존과 약속이 보증하는, 살아있는 최고의 담보물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네바돈**에서 전에 세 차례 일어났던 그런 반역은, 이번 증여를 위해서 당신이 **살빙톤**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없다. **유란시아**에서 증여하는 기간에, **네바돈**에서 생기는 반역은 그 속에 스스로 파멸되는 자동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태고 항존자**가 선포했다.

“당신이 최종적인 이 특별 증여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내가 (**가브리엘**의 협조를 받아서) 당신의 우주를 신실하게 경영할 것을 약속하며; 신성한 계시를 베푸는 이 사역(事役)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이 체험을 진행하도록 내가 당신에게 위임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곧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행동하며, 당신이 육체 속에 계속 머무는 신성한 사명에 관해서 당신이 점차 자각하게 될 때, 당신이 땅에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을 안내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한다:

2. 증여의 제한 조건

1. “나는 **소나링톤**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법과 일치하게--곧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당신이 수립했고 **가브리엘**이 내게 제출했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즉시 이 필사자 증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미리 준비해 왔다. 당신은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어린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낙원 아버지** 뜻을 따르는 동안 내내-- 인간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당신이 결정한 대로 **유란시아**에서 생애를 살 것이고, 행성 체류(滯留)를 마칠 것이며,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주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당신의 지상(地上) 사명과 우주에 베푸는 계시와는 별도로, 그러나 두 가지에 부수적으로, 나는 당신이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충분히 스스로 의식한 후에,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역을 기술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부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사람의 아들**(人子)로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조언하며; 그리하여, 그 세계의 한 필사 피조물로서, **아버지** 뜻에 신앙으로, 순종함으로써만 강해지는 연합함 속에서, 이 사악하고 부당한 반역이 개시될 때 당신에게 부여했던 능력과 권력으로 완성하기를, 당신이 임의로 계속 거절해 왔던 모든 것을 은혜롭게 성취하기를 제안한다. 당신이 자신의 우주의 최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are without celestial endowments, but all your relinquished power may be had at any time you may choose to reinvest yourself with universe authority. If you should choose to reinstate yourself in power and authority, remember, it will be wholly for *personal* reasons since I am the living and supreme pledge whose presence and promise guarantee the safe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in accordance with your Father's will. Rebellion, such as has three times occurred in Nebadon, cannot occur during your absence from Salvington on this bestowal. For the period of the Urantia bestowal the Ancients of Days have decreed that rebellion in Nebadon shall be invested with the automatic seed of its own annihilation.

120:1.7 (1326.4) “As long as you are absent on this final and extraordinary bestowal, I pledge (with Gabriel's co-operation) the faithful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and as I commission you to undertake this ministry of divine revelation and to undergo this experience of perfected human understanding, I act in behalf of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offer you the following counsel, which should guide you in the living of your earth life as you become progressively self-conscious regarding the divine mission of your continued sojourn in the flesh:

2. THE BESTOWAL LIMITATIONS

120:2.1 (1327.1) “1. In accordance with the usages and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que of Sonarington — in compliance with the mandates o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 I have provided in every way for your immediate entrance upon this mortal bestowal in harmony with the plans formulated by you and placed in my keeping by Gabriel. You will grow up on Urantia as a child of the realm, complete your human education —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 live your life on Urantia as you have determined, terminate your planetary sojourn, and prepare for ascension to your Father to receive from him the supreme sovereignty of your universe.

120:2.2 (1327.2) “2. Apart from your earth mission and your universe revelation, but incidental to both, I counsel that you assume, after you are sufficiently self-conscious of your divine identity, the additional task of technically terminating the Lucifer rebellion in the system of Satania, and that you do all this as the *Son of Man*; thus, as a mortal creature of the realm, in weakness made powerful by faith-submission to the will of your Father, I suggest that you graciously achieve all you have repeatedly declined arbitrarily to accomplish by power and might when you were so endowed at the time of the inception of this sinful and unjustified rebellion. I would regard it as a fitting climax of your mortal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당신의 필사자 증여에 걸맞은 절정으로 여길 것이다. **네바돈**에 있는 지성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유형인 한 필사적 사람으로서, **캘리가스차**와 **루시퍼**를 만나 불경스런 자만심을 심판하고, 당신의 겸허한 임시 신분 속에서, 이 타락한 빛의 자식들의 치욕적인 허위진술을 영원히 종결시켜라. 당신은 창조자 특권을 행사하여 이 반역자들을 불신임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거부해 왔었지만, 이제, 당신의 창조계에서 가장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타락한 **아들**들의 수중에서 지배권을 비틀어 빼앗음이 적절할 것이며; 그리하여, 자비가 독단적인 권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충고했던 그것들을 당신이 필사자 육신의 역할로 행한다는 그 정당성을, 당신의 지방우주 전체가 아주 공평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영원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증여함으로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함으로써, 이 업적에 다소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지라도, 이전의 모든 반란 중에서 아직 판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당신이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 행위로 인해, 당신의 우주의 미결된 분쟁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주권이라는 차후의 재능에 따라서, 당신이 친히 창조한 위대한 세상 어느 구석에서든지, 당신의 권위에 대한 유사한 도전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3. “당신이 **유란시아**의 이탈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해 내겠지만, 당신이 마지막 증여를 체험했던 당신의 우주에 영원히 인식될 수 있는, ‘**유란시아 행성 왕자**’라는 칭호를 **가브리엘**로부터 취하기를 권하며; **캘리가스차**의 배신과 그 뒤를 이은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유란시아**에 임한, 슬픔과 혼란을 보상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당신의 증여 의도와 모순되지 않게 추가로 해주시 바란다.

4.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던 필사 생존자들이 부활되고, 증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확립됨과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섭리시대 심판이 공표됨과 함께, 당신의 **유란시아** 증여를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할 때,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가브리엘**과 모든 관계자가 당신과 협동할 것이다.

5. “당신이 증여될 그 행성, 그리고 당신이 필사자로서 머무는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나는 당신이 주로 선생 역할을 하라고 권한다. 우선, 사람의 영적 본성의 해방과 감화에 관심을 뒤라. 다음으로는, 어두움에 처한 인간 지성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며, 그들의 정신을 오래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라. 그다음에는, 육신 속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의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안락함을, 당신의 필사자 지혜로 보살펴주도록 하라. 당신의 우주 전체의 영감(靈感)과

bestowal if you should return to us as the Son of Man,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s well as the Son of God, supreme sovereign of your universe. As a mortal man, the lowest type of intelligent creature in Nebadon, meet and adjudicate the blasphemous pretensions of Caligastia and Lucifer and, in your assumed humble estate, forever end the shameful misrepresentations of these fallen children of light. Having steadfastly declined to discredit these rebels through the exercise of your creator prerogatives, now it would be fitting that you should, in the likeness of the lowest creatures of your creation, wrest dominion from the hands of these fallen Sons; and so would your whole local universe in all fairness clearly and forever recognize the justice of your doing in the role of mortal flesh those things which mercy admonished you not to do by the power of arbitrary authority. And having thus by your bestowal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Nebadon, you will in effect have brought to a close the unadjudicated affairs of all preceding insurrections, notwithstanding the greater or lesser time lag involved in the realization of this achievement. By this act the pending dissensions of your universe will be in substance liquidated. And with the subsequent endowment of supreme sovereignty over your universe, similar challenges to your authority can never recur in any part of your great personal creation.

120:2.3 (1327.3) “3. When you have succeeded in terminating the Urantia secession, as you undoubtedly will, I counsel you to accept from Gabriel the conference of the title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s the eternal recognition by your universe of your final bestowal experience; and that you further do any and all things, consistent with the purport of your bestowal, to atone for the sorrow and confusion brought upon Urantia by the Caligastia betrayal and the subsequent Adamic default.

120:2.4 (1328.1) “4. In accordance with your request, Gabriel and all concerned will co-operate with you in the expressed desire to end your Urantia bestowal with the pronouncement of a dispensational judgment of the realm, accompanied by the termination of an age,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mortal survivo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ispensation of the bestowed Spirit of Truth.

120:2.5 (1328.2) “5. As concerns the planet of your bestowal and the immediate generation of men living thereon at the time of your mortal sojourn, I counsel you to function largely in the role of a teacher. Give attention, first, to the liberation and inspiration of man's spiritual nature. Next, illuminate the darkened human intellect, heal the souls of men, and emancipate their minds from age-old fears. And then, in accordance with your mortal wisdom, minister to the physical well-being

계발{啓發}을 위해, 이상적{理想的}인 종교 생활을 하라.

6. “당신이 증여될 행성에서, 반역으로 분리된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 줘라. **유란시아**에서 **지존자**의 주권에 더욱 공헌하며, 그리하여 당신이 친히 창조한 광범한 영토 전반에도, 이런 주권 확립을 확장시켜라.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당신이 물질 증여를 하면서, 당신은 사람의 본성 안에서 일하는 동시에 **낙원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일하는 이중적 체험인, 시공간 **창조주**의 최종 계몽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유한한 피조물의 뜻과 무한한 **창조주**의 뜻이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신격**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듯이, 당신의 일시적 생애에서도 두 뜻이 하나가 돼야 한다. 당신이 증여될 행성에 **진리의 영**이 쏟아 부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그 격리된 구체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로 하여금, 우리 **낙원 아버지**의 분화{分化}된 현존, 즉 그 영역의 **사고 조율사**의 보살핌을 즉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7. “당신이 증여될 그 세계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수행하든지, 당신은 자신의 우주 전체를 가르치고 계발하기 위해 생애를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명심하라. 당신이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 육신화 하는 생애를 증여하고 있지만, 당신의 경영 범위에 속하는 그 광대한 성단의, 이미 형성됐거나 현재 형성중이거나 앞으로 형성될 각각의 모든 거주 세계에서, 이제까지 살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인간 및 초인간 지성체에게 영적 감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필사자 육신을 닮은 당신의 지상{地上} 생애는, 당신이 세상에 머무는 그 시대의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위한, 그리고 **유란시아** 또는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인간의 모든 후대 자손을 위한, 본보기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시대들의 모든 세대 전반에 걸쳐서 **네바돈** 세계 전체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감을 일으키도록,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다.

8. “필사자로 육신화해서 실현하고 체험할 당신의 위대한 사명은,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육신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육신을 가진 피조물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당신의 결정에 포함돼 있다. 동시에 당신은 또한, **네바돈** 전체의 초인간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새로이 향상시켜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인간 또는 초인간 유형의 정신에게 **낙원 아버지**를 새롭게 계시하고 확대 해석하는 이 사역과 똑같이,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 사람을 새롭게 드러내려고 활동할 것이다. 당신은 육신 속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네바돈** 전체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한 인간이 필사자 실존의 짧은 생애 중에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 행성의 변화무쌍한 생활에 대해서, **네바돈** 전체 및 모든 시대의 초인간 지성

and material comfort of your brothers in the flesh. Live the ideal religious life for the inspiration and edification of all your universe.

120:2.6 (1328.3) “6. On the planet of your bestowal, set rebellion-segregated man spiritually free. On Urantia, make a further contribution to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thus extending the establishment of this sovereignty throughout the broad domains of your personal creation. In this, your material bestowal in the likeness of the flesh, you are about to experience the final enlightenment of a time-space Creator, the dual experience of working within the nature of man with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In your temporal life the will of the finite creature and the will of the infinite Creator are to become as one, even as they are also uniting in the evolv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Pour out upon the planet of your bestowal the Spirit of Truth and thus make all normal mortals on that isolated sphere immediately and fully accessible to the ministry of the segregated presence of our Paradise Father, the Thought Adjusters of the realms.

120:2.7 (1328.4) “7. In all that you may perform on the world of your bestowal, bear constantly in mind that you are living a life for the instruction and edification of all your universe. You are *bestowing* this life of mortal incarnation upon Urantia, but you are to *live* such a life for the spiritual inspiration of every human and superhuman intelligence that has lived, now exists, or may yet live on every inhabited world which has formed, now forms, or may yet form a part of the vast galaxy of your administrative domain. Your earth lif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hall not be so lived as to constitute an *example* for the mortals of Urantia in the days of your earthly sojourn nor for any subsequent generation of human beings on Urantia or on any other world. Rather shall your life in the flesh on Urantia be the *inspiration* for all lives upon all Nebadon worlds throughout all generations in the ages to come.

120:2.8 (1328.5) “8. Your great mission to be realized and experienced in the mortal incarnation is embraced in your decision to live a life wholeheartedly motivated to do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thus to *reveal God*, your Father, in the flesh and especially to the creatures of the flesh. At the same time you will also *interpret*, with a new enhancement, our Father, to the supermortal beings of all Nebadon. Equally with this ministry of new revelation and augmented interpretation of the Paradise Father to the human and the superhuman type of mind, you will also so function as to make a new revelation of man to God. Exhibit in your one short life in the flesh, as it has never before been seen in all Nebadon, the transcendent possibilities attainable by a God-knowing human during the short career of mortal existence, and make a new and illuminating

체들에게 새롭고 빛나는 해석을 해줘라.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은 자신의 광대한 창조 직무에 최상으로 임하는, 완전하게 된 이상적인 기법을 당신의 전체 우주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있는데: 그 기법은, 사람을 찾다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취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하는 현상이며; 상호 만족이 되도록, 육신 속에서 한 번의 짧은 일생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9. “나는, 당신이 사실적으로 그 영역의 보통 인간이 되는 동안에도, 잠재적으로는 **낙원 아버지의 창조주 아들로** 남아있게 될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고 주의를 준다. 이 육신화 기간 내내, 당신이 비록 **사람의 아들**로서 살고 활동하게 될지라도, 당신의 개인적 신성(神性)의 창조 속성은 **살빙톤**에서 **유란시아**까지 당신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사고 조율사**가 도착한 후에는 언제든지, 육신화 과정을 종결시키는 것이 당신의 의지적 능력에 항상 달려있을 것이다. **조율사**가 도착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당신의 인격의 완전성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조율사**가 도착하고, 당신의 증여 사명의 본성과 취지에 대한 점진적 인식이 이뤄진 후에는, 당신의 창조자 특권이 당신의 필사 인격과 연합된 채 여전히 남아 있게 되리라는 사실로 볼 때, 당신은 어떤 초인적 달성 의지, 성취, 또는 능력이든지 자제해야 하는데, 당신의 개인적인 현존에서 이런 속성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의지로 행동함으로써 온 인격의 선택으로 종결시킬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낙원 아버지**의 뜻 외에는 어떤 초인적 영향도 당신의 세상 생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3. 계속된 권고와 조언

“내 형제여, 그리고 이제, 당신이 **유란시아**로 떠날 준비가 됨에 따라 당신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당신의 증여의 일반 진행에 대해 당신에게 조언을 마치면서, 나는 **가브리엘**과 의논해서 얻은, 그리고 당신의 필사자 생애의 사소한 국면들에 관한 어떤 조언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다음의 제안을 덧붙인다:

1. “즉, 당신의 필사자 지상 생애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동안에, 당신은 동료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 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도 역시 관심을 기울여라.

2. “가족 관계에 관해서는, 당신이 증여된 그 시대와 세대에 확립돼 있는 것들을 당신이 발견한 그대로, 숙지된 가정생활 관습에 우선권을 줘라. 당신이 나타나기로 선택한 그 민족의 풍습에 따라

interpretation of man and the vicissitudes of his planetary life to all the superhuman intelligences of all Nebadon, and for all time. You are to go down to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living as a man in your day and generation, you will so function as to show your entire universe the ideal of perfected technique in the supreme engagement of the affairs of your vast creation: The achievement of God seeking man and finding him and the phenomenon of man seeking God and finding him; and doing all of this to mutual satisfaction and doing it during one short lifetime in the flesh.

120:2.9 (1329.1) “9. I caution you ever to bear in mind that, while in fact you are to become an ordinary human of the realm, in potential you will remain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is incarnation, although you will live and act as a Son of Man, the creative attributes of your personal divinity will follow you from Salvington to Urantia. It will ever be within your power-of-will to terminate the incarnation at any moment subsequent to the arrival of your Thought Adjuster. Prior to the arrival and reception of the Adjuster I will vouch for your personality integrity. But subsequent to the arrival of your Adjuster and concomitant with your progressive recognition of the nature and import of your bestowal mission, you should refrain from the formulation of any superhuman will-to-attainment, achievement, or power in view of the fact that your creator prerogatives will remain associated with your mortal personality because of the inseparability of these attributes from your personal presence. But no superhuman repercussions will attend your earthly career apart from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unless you should, by an act of conscious and deliberate will, make an undivided decision which would terminate in whole-personality choice.

3. FURTHER COUNSEL AND ADVICE

120:3.1 (1329.2) “And now, my brother, in taking leave of you as you prepare to depart for Urantia and after counseling you regarding the general conduct of your bestowal, allow me to present certain advices that have been arrived at in consultation with Gabriel, and which concern minor phases of your mortal life. We further suggest:

120:3.2 (1329.3) “1. That, in the pursuit of the ideal of your mortal earth life, you also give some attention to the realization and exemplification of some things practical and immediately helpful to your fellow men.

120:3.3 (1329.4) “2. As concerns family relationships, give precedence to the accepted customs of family life as you find them established in the day and generation of your bestowal. Live your family

서 가족생활과 공동체생활을 살아가.

3. “사회 질서에 대한 당신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주로 영적 쇄신과 지성적 해방을 위한 일에 당신의 노력을 한정시키기 바란다. 당신이 있는 시대의 경제 구조나 정치 공약{公約}에 결코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각별히 헌신해라.

4.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유란시아** 종족들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점진적 진화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제약이, 당신이 떠난 후에 **유란시아**에 긍정적 종교 윤리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체계를 남겨놓으려는 당신의 노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섭리시대의 **아들**로서 당신에게는, 그 세계 민족들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상태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어떤 특권이 부여돼 있다.

5. “당신이 적당한 것을 찾게 된다면, **유란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종교와 영적 운동에 견해를 같이할 수 있겠지만, 조직화된 한 종파, 구체화된 종교, 또는 필사 존재들의 분리된 어떤 도덕적 집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피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삶과 교훈은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유산이 돼야 한다.

6. “**유란시아**의 종교적 신념의 계속되는 진부한 체계들, 또는 다른 유형의, 진보가 불가능한 종교적 충성심이 조성되는 일에, 당신이 끝까지 불필요하게 기여하지 않도록, 덧붙여서 충고 한다: 당신은 그 행성에 어떤 문서도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 위에 어떤 글도 남기지 말며; 또한 동역자들에게 당신의 육신을 닮은 어떤 형상 또는 기타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해라. 당신이 떠날 때, 그 행성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해라.

7. “당신이 정상적인 한 남성{男性} 개인이 되어, 그 행성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당신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그 관계가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당신의 증여와 모순되지는 않지만; 나는 **소나링톤**에서 내린 육신화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낙원**에서 기원돼 증여된 **아들**은 어떤 행성에도 인간 후손을 남기지 말라고 금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다짐해 줘야 하겠다.

8. “다가오는 당신의 증여에 관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을 안내하는 언제든지 현존하는 신성한 영의 가르침인 내주하는 **조울사**의 안내,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확장되는 당신의 인간 정신의 이성_판단에 당신을 맡기고자 한다. 피조물과 **창조주** 속성의 그런 연합은,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그 행성 구체에서 사람의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인데, 그런 인생은 (**유란시아**는 물론이고) 어떤 한 세계에서, 어

and community life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s of the people among whom you have elected to appear.

120:3.4 (1329.5) “3. In your relations to the social order we advise that you confine your efforts largely to spiritual regeneration and intellectual emancipation. Avoid all entanglements with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ommitments of your day. More especially devote yourself to living the ideal religious life on Urantia.

120:3.5 (1329.6) “4. Under no circumstances and not even in the least detail, should you interfere with the normal and orderly progressive evolution of the Urantia races. But this prohibition must not be interpreted as limiting your efforts to leave behind you on Urantia an enduring and improved system of positive religious ethics. As a dispensational Son you are granted certain privileges pertain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spiritual and religious status of the world peoples.

120:3.6 (1330.1) “5. As you may see fit, you are to identify yourself with existing religious and spiritual movements as they may be found on Urantia but in every possible manner seek to avoid the formal establishment of an organized cult, a crystallized religion, or a segregated ethical grouping of mortal beings. Your life and teachings are to become the common heritage of all religions and all peoples.

120:3.7 (1330.2) “6. To the end that you may not unnecessaril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ubsequent stereotyped systems of Urantia religious beliefs or other types of nonprogressive religious loyalties, we advise you still further: Leave no writings behind you on the planet. Refrain from all writing upon permanent materials; enjoin your associates to make no images or other likenesses of yourself in the flesh. See that nothing potentially idolatrous is left on the planet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120:3.8 (1330.3) “7. While you will live the normal and average social life of the planet, being a normal individual of the male sex, you will probably not enter the marriage relation, which relation would be wholly honorable and consistent with your bestowal; but I must remind you that one of the incarnation mandates of Sonarington forbids the leaving of human offspring behind on any planet by a bestowal Son of Paradise origin.

120:3.9 (1330.4) “8. In all other details of your oncoming bestowal we would commit you to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teaching of the ever-present divine spirit of human guidance, and the reason-judgment of your expanding human mind of hereditary endowment. Such an association of creature and Creator attributes will enable you to live for us the perfect life of man on the planetary spheres, not necessarily perfect as regarded by any one man in any one generation on

느 한 세대에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신의 멀리_퍼지는 우주에서 더욱 높게 완성되고 또 완성돼 가는 세계들이 평가하건대, 온전히 최상으로 충만한 인생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떠나서 당신 자신의 인격 의식을 양도하는 순간부터, 인간 모습으로 육신화한 당신의 신성한 신분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유란시아** 증여 체험을 모두 마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주권 오른편으로 상승하게 될 때까지, 지나간 모든 업적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탱해 주신 당신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께서,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며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살빙톤**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신이 직접 만들고 봉사하며 완전한 이해를 이룩한 당신의 우주에, 최상의 무조건적인 주권자로서 귀환하는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통치한다. 나는 당신이 **유란시아**에서 일곱 번째이자 필사자로서 증여하는 짧은 기간에, **네바돈** 전체에 대해 대리 주권자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람의 아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력과 영광을 지니고 내게 곧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 **가브리엘**에게 **사람의 아들**의 안전을 맡긴다. **가브리엘**아, **미가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네 주권자다.”

그리고 나서 즉시, 전체 **살빙톤** 모임 앞에서, **미가엘**은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가 **유란시아**로의 증여 생애를 모두 마친 후에, 우주에서 최상으로 친히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4.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들

그리하여, 자신의 **창조주**_아버지가 이기적인 지배를 원한다고 참소하고, 비굴한 피조물이 사는 미혹당한 우주가 비이성적으로 충성한 덕분에, **창조주 아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넌지시 비난하는 일에 빠졌던, **미가엘**의 어떤 비열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시작하는, 자기를_망각하고 봉사하는 --곧 항상 “**낙원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생애로 인해, 영원히 침묵하고 당황하게 됐으며 환멸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미가엘**은, 진실로 이중{二重}_기원을 가진 존재이지만, 이중 인격체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육신화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바로 그 결합된 존재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서 점진적인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이 사실

any one world (much less on Urantia) but wholly and supremely replete as evaluated on the more highly perfected and perfecting worlds of your far-flung universe.

120:3.10 (1330.5) “And now, may your Father and my Father, who has ever sustained us in all past performances, guide and sustain you and be with you from the moment you leave us and achieve the surrender of your consciousness of personality, throughout your gradual return to recognition of your divine identity incarnate in human form, and then on through the whole of your bestowal experience on Urantia until your deliverance from the flesh and your ascension to our Father’s right hand of sovereignty. When I shall again see you on Salvington, we shall welcome your return to us as the supreme and unconditional sovereign of this universe of your own making, serving, and completed understanding.

120:3.11 (1330.6) “In your stead I now reign. I assume jurisdiction of all Nebadon as acting sovereign during the interim of your seventh and mortal bestowal on Urantia. And to you, Gabriel, I commit the safekeeping of the Son of Man about-to-be until he shall presently and in power and glory be returned to me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And, Gabriel, I am your sovereign until Michael thus returns.”

120:3.12 (1330.7) Then, immediately, in the presence of all Salvington assembled, Michael removed himself from our midst, and we saw him no more in his accustomed place until his return as the supreme and personal ruler of the universe, subsequent to the completion of his bestowal career on Urantia.

4. THE INCARNATION — MAKING TWO ONE

120:4.1 (1331.1) And so certain unworthy children of Michael, who had accused their Creator-father of selfishly seeking rulership and indulged the insinuation that the Creator Son was arbitrarily and autocratically upheld in power by virtue of the unreasoning loyalty of a deluded universe of subservient creatures, were to be silenced forever and left confounded and disillusioned by the life of self-forgetful service which the Son of God now entered upon as the Son of Man —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120:4.2 (1331.2) But make no mistake; Christ Michael, while truly a dual-origin being, was not a double personality. He was not God in association with man but, rather, God incarnate in man. And he was always just that combined being. The only progressive factor in such a nonunderstandable relationship was the progressive self-conscious realization and recognition (by the human mind) of

을, (인간의 정신으로) 점차 자아_의식하는 깨달음과 인식이었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세 존재인 **낙원 삼위일체**가 실제로 **하나의 신격**이듯이,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은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다.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하는 최고의 영적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기적적인 것들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지방우주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거의 없으며, 기적 중에서 가장 경탄할만한 것은, **낙원 아들**들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아들**이, 외견상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세계 속에 그리고 거기에 출현한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여긴다--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우주 법칙의 작동이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의 인격자였다.

이런 특별한 전체 체험 속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방법으로**-- 신성하게 행동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믿을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선택하셨다.

this fact of being God and man.

120:4.3 (1331.3) Christ Michael did not progressively become God. God did not, at some vital moment in the earth life of Jesus, become man. Jesus was God *and* man — always and even forevermore. And this God and this man were, and now are, *one*, even as the Paradise Trinity of three beings is in reality *one* Deity.

120:4.4 (1331.4)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supreme spiritual purpose of the Michael bestowal was to enhance the *revelation of God*.

120:4.5 (1331.5) Urantia mortals have varying concepts of the miraculous, but to us who live as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there are few miracles, and of these by far the most intriguing are the incarnational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e appearance in and on your world, by apparently natural processes, of a divine Son, we regard as a miracle — the operation of universal laws beyond our understanding. Jesus of Nazareth was a miraculous person.

120:4.6 (1331.6) In and through all this extraordinary experience, God the Father chose to manifest himself as he always does — *in the usual way* — in the normal, natural, and dependable way of divine acting.

제121편. 미가엘이 증여된 때의 시대환경

⇨ 120

유란시아 책

12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1편

미가엘이 증여된 때의 시대환경

섹션

소개

1.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의 서양
2. 유대 민족
3. 이방인 가운데서
4. 이방 철학
5. 이방 종교
6. 히브리 종교
7. 유대인과 이방인
8.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

PAPER 121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Occiden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2. The Jewish People
3. Among the Gentiles
4. Gentile Philosophy
5. The Gentile Religions
6. The Hebrew Religion
7. Jews and Gentiles
8. Previous Written Records

소개

유란시아 중도자 연합 형제단체의 12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서 활동하는, 우리 계층의 수석 우두머리와 기록 담당 **멜기세덱**의 공동 후원을 받았던 나는, 한때 **안드레 사도**에게 배속돼 있었던 2차 중도자이며,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하는 지구상의 피조물이 관측했던 바대로, 그리고 현세에서 나의 보호 대상이었던 인간 상대자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기록했던 바대로, **나사렛 예수**의 생애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안드레 사도**는, 기록된 글을 남기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았으므로,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가 복사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 편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으므로, **복음서** 작성이 많이 지연됐다.

INTRODUCTION

121:0.1 (1332:1) AC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ission of twelve members of the United Brotherhood of Urantia Midwayers, conjointly sponsored by the presiding head of our order and the Melchizedek of record, I am the secondary midwayer of onetime attachment to the Apostle Andrew, and I am authorized to place on record the narrative of the life transactions of Jesus of Nazareth as they were observed by my order of earth creatures, and as they were subsequently partially recorded by the human subject of my temporal guardianship. Knowing how his Master so scrupulously avoided leaving written records behind him, Andrew steadfastly refused to multiply copies of his written narrative. A similar attitude on the part of the other apostles of Jesus greatly delayed the writing of the Gospels.

1.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의 서양

1. THE OCCIDEN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태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영적 사색(思索)과 종교 생활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아담** 이후 역사보다 앞선 전체 역사에서 알려진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어느 시대에도 체험하지 못할 정도였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했을 때, 세상은 그 전에 만연했거나 또는 그 후로 생긴 상황 중에서 **창조주** **아들**의 증여에 최고로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다. 이 시기 직전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가 **서양**과 **근동**(近東)에 널리 퍼졌으며, **레반트**족인 **유대인**은 본성에서 일부는 **서양적**이고 일부는 **동양적**이었는데, **동방**과 **서방** 양쪽에 새로운 어떤 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그런 문화와 언어의 배경을 활용하기에 매우 적당했다. 이런 최적의 환경은, **로마인**이 **지중해** 지역을 정치적으로 관대하게 통치함으로써 더욱 증진됐다.

세계의 영향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된 것은,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유대인** **메시아**의 복음을 **그리스** 말로 전파했지만,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다.

예수의 시대 같은 문명은, **서양**에서 그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유럽**의 문명은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삼중적 영향 아래서 통합됐고 조화를 이뤘다:

1. **로마**의 정치적 및 사회적 체계들.

2. **그리스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철학.

3. **유대인**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훈의, 급속히 퍼져나간 영향력.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지중해** 연안 전 지역은 통합된 제국을 이뤘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양호한 상태의 도로들이 여러 주요 중심지를 연결했다. 바다에서는 해적이 소탕됐고, 무역과 여행이 크게 이뤄지는 시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다. **유럽**은, **그리스도**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그런 여행과 무역의 시대를 다시 맛보지 못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내부 평화와 외견상 번영에도, 제국의 대다수 주민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 속에서 고달픈 생활을 했다. 소수의 상류 계층은 부유했으나; 가난에 쪼들리고 허약한 하류 계층에는, 인류 중에서 서민들도 포함됐다.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이 없었으며; 중산층이 **로마** 사회 내에 막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확장하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첫 갈등이 이 시기 직전에 종결됐는데,

121:1.1 (1332.2) Jesus did not come to this world during an age of spiritual decadence; at the time of his birth Urantia was experiencing such a revival of spiritual thinking and religious living as it had not known in all its previous post-Adamic history nor has experienced in any era since. When Michael incarnated on Urantia, the world presented the most favorable condition for the Creator Son's bestowal that had ever previously prevailed or has since obtained. In the centuries just prior to these times Greek culture and the Greek language had spread over Occident and near Orient, and the Jews, being a Levantine race, in nature part Occidental and part Oriental, were eminently fitted to utilize such cultural and linguistic settings for the effective spread of a new religion to both East and West. These most favorable circumstances were further enhanced by the tolerant political rule of the Mediterranean world by the Romans.

121:1.2 (1332.3) This entire combination of world influences is well illustrated by the activities of Paul, who, being in religious culture a Hebrew of the Hebrews, proclaimed the gospel of a Jewish Messiah in the Greek tongue, while he himself was a Roman citizen.

121:1.3 (1332.4) Nothing like the civilization of the times of Jesus has been seen in the Occident before or since those days. European civilization was unified and co-ordinated under an extraordinary threefold influence:

121:1.4 (1332.5) 1. The Roma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121:1.5 (1332.6) 2. The Grecian language and culture — and philosophy to a certain extent.

121:1.6 (1332.7) 3. The rapidly spreading influence of Jewish religious and moral teachings.

121:1.7 (1332.8) When Jesus was born, the entire Mediterranean world was a unified empire. Good road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s history, interconnected many major centers. The seas were cleared of pirates, and a great era of trade and travel was rapidly advancing. Europe did not again enjoy another such period of travel and trade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after Christ.

121:1.8 (1333.1) Notwithstanding the internal peace and superficial prosperity of the Greco-Roman world, a majority of the inhabitants of the empire languished in squalor and poverty. The small upper class was rich; a miserable and impoverished lower class embraced the rank and file of humanity. There was no happy and prosperous middle class in those days; it had just begun to make its appearance in Roman society.

121:1.9 (1333.2) The first struggles between the expanding Roman and Parthian states had been concluded in the then recent past, leaving Syria in

결과적으로 **시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틴**과 **시리아**는, 번영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을 누리고 있었으며, **서방**과 **동방**에 있는 나라들과 상업 교역이 널리 이뤄지고 있었다.

2. 유대 민족

유대인은 고대의 **셈족속** 가운데 일원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그리고 최근에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인**도 **셈족속**에 포함됐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전반기에는 **유대인**이 **셈족속**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으며, 그들은 당시에 그 지역이 무역을 위해 통치되고 조직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특별히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우연히 점유하고 있었다.

옛 국가들을 연결하는 큰 대로들 가운데 다수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했으므로, 이 지역은 세계의 대륙이 서로 만나는 장소, 즉 교차로가 됐다. **바빌로니아**, **앗수르**,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의 여행객, 상인, 및 군대가 연속으로 **팔레스틴**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많은 대상(隊商) 경로가 **동양**으로부터 이 지역 가운데 어느 부분을 거쳐서,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몇몇 우수한 항구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배들이 **서양**의 연안(沿岸) 전역으로 짐을 운반했다. 그리고 이런 대상 행렬 가운데 반 이상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을 통과하거나 그 근처를 지나갔다.

팔레스틴이 **유대교** 문화의 본향이자 **그리스도교**의 탄생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 살았고, **로마**와 **파르티아** 국가들의 모든 지역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했고, **로마**는 도로를 건설하고 제국을 통합했지만, 흩어진 **유대인**은 **로마** 세계 전역 여기저기 퍼져 있는 200개 이상의 회당과 잘 조직된 종교 공동체를 갖추고, 문화 중심지를 제공했는데, 거기서 하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초를 다졌고, 나중에는 그곳으로부터 전 세계 땅 끝까지 퍼져나갔다.

각 **유대인** 회당은 비주류 이방인 신자, 즉 “헌신적인”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초기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이 비주류 개종자에 속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도, 화려하게 장식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문화, 상업, 및 경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렀다.

the hands of the Romans. In the times of Jesus, Palestine and Syria were enjoying a period of prosperity, relative peace, and extensive commercial intercourse with the lands to both the East and the West.

2. THE JEWISH PEOPLE

121:2.1 (1333.3) The Jews were a part of the older Semitic race, which also included the Babylonians, the Phoenicians, and the more recent enemies of Rome, the Carthaginians. During the fore par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Jews were the most influential group of the Semitic peoples, and they happened to occupy a peculiarly strategic geographic position in the world as it was at that time ruled and organized for trade.

121:2.2 (1333.4) Many of the great highways joining the nations of antiquity passed through Palestine, which thus became the meeting place, or crossroads, of three continents. The travel, trade, and armies of Babylonia, Assyria, Egypt, Syria, Greece, Parthia, and Rome successively swept over Palestine. From time immemorial, many caravan routes from the Orient passed through some part of this region to the few good seaports of the eastern end of the Mediterranean, whence ships carried their cargoes to all the maritime Occident. And more than half of this caravan traffic passed through or near the littl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121:2.3 (1333.5) Although Palestine was the home of Jewish religious culture and the birthplace of Christianity, the Jews were abroad in the world, dwelling in many nations and trading in every province of the Roman and Parthian states.

121:2.4 (1333.6) Greece provided a language and a culture, Rome built the roads and unified an empire, but the dispersion of the Jews, with their more than two hundred synagogues and well-organized religious communities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 Roman world, provided the cultural centers in which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found initial reception, and from which it subsequently spread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121:2.5 (1333.7) Each Jewish synagogue tolerated a fringe of gentile believers, “devout” or “God-fearing” men, and it was among this fringe of proselytes that Paul made the bulk of his early converts to Christianity. Even the temple at Jerusalem possessed its ornate court of the gentiles. There was very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ulture, commerce, and worship of Jerusalem and Antioch. In Antioch Paul’s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유대인의 성전 경배가 **예루살렘**에 집중된 것은, 그들의 유일신(唯一神) 사상이 살아남은 비결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의 유일한 **하나님** 동시에 모든 필사자의 **아버지**라는, 새롭고 확장된 개념을 양육시켜서 세계로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만들어냈다.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이어지는 이방의 국가적 지배자들과 인종적 박해자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문화 개념이 살아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이 시기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종주권 아래 있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누렸는데, **유다 마카비** 및 그의 직속 후계자들이 이룩한, 그 당시로는 최근에 영웅적으로 나라를 구원한 업적을 기억하면서, 더 위대한 구원자, 즉 오랫동안_대망(待望)했던 **메시아**의 임박한 출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팔레스틴, 즉 **유대인** 왕국이 약간_독립된 국가로서 생존한 비결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팔레스틴** 대로(大路)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사이의 대상(隊商) 노선들의 서쪽 기착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로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레반트**에서 **로마**가 장차 확장하려는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든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로마**는 원치 않았다. **셀류시드**의 **시리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가, 서로 대적하는 상태에서 완충 지역으로, **팔레스틴**을 분리되고 독립된 국가로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작고 힘없는 **유대인** 집단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북으로는 **셀류시드**에 대적하고, 남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에 대적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는데, **로마**는 **파르티아**가 세력이 부상하기 전에 **이집트**를 쇠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셀류시드**를 점차 약화시키려고 했다. 두려운 더 강력한 민족들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렇게 운 좋은 자유와 독립을 누린 것에 대해,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 덕분이라고, **야훼**가 직접 개입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로마**의 압제가 마침내 그들의 영토에 임했을 때, 그런 인종적 자만심의 태도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시기에도, **유대인**은 자신의 지상 사명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로마 관리들에게 아부함으로써 **유대지방**의 지배권을 갖게 된, **이두메** 사람으로서 외부인인 **헤롯**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당시의 **유대인**은 유별나게 걱정과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헤롯**은 **히브리**의 예식 관례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여러 낯선 신을 섬기는 신전(神殿)을 계속 건설했다.

헤롯과 **로마** 관리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유대인**은 온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게 됐다

121:2.6 (1333.8) The centralization of the Jewish temple worship at Jerusalem constituted alike the secret of the survival of their monotheism and the promise of the nurture and sending forth to the world of a new and enlarged concept of that one God of all nations and Father of all mortals. The temple service at Jerusalem represented the survival of a religious cultural concept in the face of the downfall of a succession of gentile national overlords and racial persecutors.

121:2.7 (1334.1) The Jewish people of this time, although under Roman suzerainty, enjoyed a considerable degree of self-government and, remembering the then only recent heroic exploits of deliverance executed by Judas Maccabee and his immediate successors, were vibrant with the expectation of the immediate appearance of a still greater deliverer, the long-expected Messiah.

121:2.8 (1334.2) The secret of the survival of Palestine, the kingdom of the Jews, as a semi-independent state was wrapped up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Roman government, which desired to maintain control of the Palestinian highway of travel between Syria and Egypt as well as the western terminals of the caravan routes betwee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Rome did not wish any power to arise in the Levant which might curb her future expansion in these regions. The policy of intrigue which had for its object the pitting of Seleucid Syria and Ptolemaic Egypt against each other necessitated fostering Palestine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state. Roman policy, the degeneration of Egypt, and the progressive weakening of the Seleucids before the rising power of Parthia, explain why it was that for several generations a small and unpowerful group of Jews was able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against both Seleucidae to the north and Ptolemies to the south. This fortuitous liberty and independence of the political rule of surrounding and more powerful peoples the Jew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y were the “chosen people,” to the direct interposition of Yahweh. Such an attitude of racial superiority made it all the harder for them to endure Roman suzerainty when it finally fell upon their land. But even in that sad hour the Jews refused to learn that their world mission was spiritual, not political.

121:2.9 (1334.3) The Jews were unusually apprehensive and suspicious during the times of Jesus because they were then ruled by an outsider, Herod the Idumean, who had seized the overlordship of Judea by cleverly ingratiating himself with the Roman rulers. And though Herod professed loyalty to the Hebrew ceremonial observances, he proceeded to build temples for many strange gods.

121:2.10 (1334.4) The friendly relations of Herod with the Roman rulers made the world safe for Jewish

며,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먼 지역은 물론, 다른 여러 동맹국들에게까지 하느님의 나라의 새 복음을 지니고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헤롯**의 통치는, **히브리**와 **헬라** 철학이 더욱 섞이는 데에도 많이 기여했다.

헤롯이 가이사라 항구를 건설했는데, **팔레스틴**이 나중에 문명세계의 교차로가 되는 데 더욱 기여했다. 그는 기원전 4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유년시절 및 공생애 기간에, 그리고 서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처럼 훌륭한 건축가였다. 그는 중요한 무역중심지인 **세포리**를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를 개축했다.

갈릴리인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 선생들로부터 충분한 호감을 얻지 못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보다 오히려 이방에 가까웠다.

3.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조건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국내에 널리 퍼진 평화와 풍요는 **미가엘**이 증여되기에 매우 적합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 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잘 구분된 다섯 계층이 있었다:

1. **귀족**.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상위계층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통치하는 집단들.

2. **사업자 집단**. 상인 부호(富豪)들과 은행가들, 무역업자들--큰 규모의 수입, 수출업자들과 국제 상인들.

3. **소수의 중산 계층**. 이 집단은 정말로 작기는 했지만, 매우 영향력 있었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도덕적 중추 역할을 했는데, 교회는 이 집단이 다양한 생산과 교역을 계속하도록 장려했다. **유대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이 이 무역업자 계층에 속했다.

4. **자유 무산 계층**.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거나 없는 집단. 자유를 누리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노예 노동자와 경쟁하도록 내몰렸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상위 계층들은 이들을 경멸했으며, “자손을 번성시키는 목적”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다.

5. **노예 계층**. **로마** 국가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개인적으로 우수하여, 자유 무산 계층으로, 혹은 무역업자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재빨리 개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매우 열등했다.

travel and thus opened the way for increased Jewish penetration even of distant portions of the Roman Empire and of foreign treaty nations with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Herod's reign also contributed much toward the further blending of Hebrew and Hellenistic philosophies.

121:2.11 (1334.5) Herod built the harbor of Caesarea, which further aided in making Palestine the crossroads of the civilized world. He died in 4 B.C., and his son Herod Antipas governed Galilee and Perea during Jesus' youth and ministry to A.D. 39. Antipas, like his father, was a great builder. He rebuilt many of the cities of Galilee, including the important trade center of Sepphoris.

121:3.12 (1334.6) The Galileans were not regarded with full favor by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and rabbinical teachers. Galilee was more gentile than Jewish when Jesus was born.

3. AMONG THE GENTILES

121:3.1 (1334.7) Although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the Roman state was not of the highest order, the widespread domestic peace and prosperity was propitious for the bestowal of Michael.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socie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consisted of five well-defined strata:

121:3.2 (1335.1) 1. *The aristocracy*. The upper classes with money and official power, the privileged and ruling groups.

121:3.3 (1335.2) 2. *The business groups*. The merchant princes and the bankers, the traders — the big importers and exporters — the international merchants.

121:3.4 (1335.3) 3. *The small middle class*. Although this group was indeed small, it was very influential and provided the moral backbone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which encouraged these groups to continue in their various crafts and trades. Among the Jews many of the Pharisees belonged to this class of tradesmen.

121:3.5 (1335.4) 4. *The free proletariat*. This group had little or no social standing. Though proud of their freedom, they were placed at great disadvantage because they were forced to compete with slave labor. The upper classes regarded them disdainfully, allowing that they were useless except for “breeding purposes.”

121:3.6 (1335.5) 5. *The slaves*. Half the population of the Roman state were slaves; many were superior individuals and quickly made their way up among the free proletariat and even among the tradesmen. The majority were either mediocre or very inferior.

우수한 사람들조차 노예가 된 것은, **로마**의 군사 정복으로 인한 특색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은 무조건적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주로 낮은 계층과 이 노예들로 구성됐다.

우수한 노예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벌어들인 돈을 저축해서 자유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방된 노예 가운데 다수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변경된 이 노예제도를 쉽게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진 사회 문제는 없었다. 다수의 서민은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그 집단에 소속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재주 있고 유능한 개인들이 **로마**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 직급에 만족했다. 그들은 계층을 의식하지 않았고, 이런 계층 구분을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억압받는 계층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제 운동이 전혀 아니었다.

여자는, **팔레스틴**에서 제한된 지위에 있었던 것에 비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렸지만, 가족에 대한 **유대인**의 헌신과 자연스런 애정은 이방인 세계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다.

4. 이방 철학

도덕적 관점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어느 정도 열등했으나, 더 고상한 이방인의 마음 속에는 천부적인 선함과 잠재적인 인간 애정의 풍부한 토양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도덕적 성품과 영적 성취의 풍성한 수확이 가능했다. 이방 세계는 그때 네 가지 중요한 철학에 지배됐는데, 그것들은 모두, 어느 정도 **그리스인**의 초기 **플라톤주의**에서 파생됐다. 이 철학 학파는 다음과 같다:

1. **에피쿠로스학파**. 이 사고{思考} 학파는 행복 추구에 전념했다. 대부분의 **에피쿠로스인**은 지나친 욕욕{肉慾}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이 교리는, 적어도 **로마인**이 치명적 숙명론 틀에서 해방되도록 도왔으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노력하면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무지한 미신을 효과적으로 퇴치했다.

2. **스토아학파**. **금욕주의**는 상류 계층이 지녔던 우수한 철학이었다. **금욕주의자**는 이성·속명 통제가 전체 자연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신성하며; 물질 본성의 악한 욕체 속

121:3.7 (1335.6) Slavery, even of superior peoples, was a feature of Roman military conquest. The power of the master over his slave was unqualified. The early Christian church was largely composed of the lower classes and these slaves.

121:3.8 (1335.7) Superior slaves often received wages and by saving their earnings were able to purchase their freedom. Many such emancipated slaves rose to high positions in state, church, and the business world. And it was just such possibilities that made the early Christian church so tolerant of this modified form of slavery.

121:3.9 (1335.8) There was no widespread social problem in the Roman Empire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major portion of the populace regarded themselves as belonging in that group into which they chanced to be born. There was always the open door through which talented and able individuals could ascend from the lower to the higher strata of Roman society, but the people were generally content with their social rank. They were not class conscious, neither did they look upon these class distinctions as being unjust or wrong. Christianity was in no sense an economic movement having for its purpose the amelioration of the miseries of the depressed classes.

121:3.10 (1335.9) Although woman enjoyed more freedom throughout the Roman Empire than in her restricted position in Palestine, the family devotion and natural affection of the Jews far transcended that of the gentile world.

4. GENTILE PHILOSOPHY

121:4.1 (1335.10) The gentiles were, from a moral standpoint, somewhat inferior to the Jews, but there was present in the hearts of the nobler gentiles abundant soil of natural goodness and potential human affection in which it was possible for the seed of Christianity to sprout and bring forth an abundant harvest of moral character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 gentile world was then dominated by four great philosophies, all more or less derived from the earlier Platonism of the Greeks. These schools of philosophy were:

121:4.2 (1335.11) 1. *The Epicurean*. This school of thought was dedicated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better Epicureans were not given to sensual excesses. At least this doctrine helped to deliver the Romans from a more deadly form of fatalism; it taught that men could do something to improve their terrestrial status. It did effectually combat ignorant superstition.

121:4.3 (1336.1) 2. *The Stoic*. Stoicism was the superior philosophy of the better classes. The Stoics believed that a controlling Reason-Fate dominated all nature. They taught that the soul of

에 혼이 간혀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혼은, 자연계, 즉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성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었다. **금욕주의**는 탁월한 도덕 수준까지 상승했고, 그 후에 어떤 순전한 인간적 철학체제도 결코 뛰어넘지 못한 이상이었다.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를 알아내기에 실패했고, 따라서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욕주의**는 철학으로 남게 됐고; 결코 종교가 되지 못했다. 그 추종자들은 보편적 정신의 조화에 자신의 정신을 조율시키려고 애썼지만, 자신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상하지는 못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글을 썼을 때, **금욕주의**에 몹시 끌려있었다.

3. **견유(犬儒)학파**. **견유학파**는 그들의 철학자취가 **아덴**의 **디오게네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교리 중에서 많은 부분은 **마키벤타 멜기세덱** 교훈의 잔재에서 유래했다. **견유주의**는 초기에는 철학이라기보다 종교에 더 가까웠다. **견유학파**는 적어도 그들의 종교 철학을 대중적(大衆的)이 되게 했다. 그들은 들에서나 시장에서, “사람은 원하지만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계속 전파했다. 그들은 검소함과 덕행을 전파했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런 방랑하는 **견유학파** 설교자들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위해 영적으로 배고픈 민중을 준비시키기에 많이 공헌했다. 그들의 대중 설교 방식은 **바울 서신**의 형식과 문체를 많이 따랐다.

4. **회의론(懷疑論)학파**. **회의론**은, 지식이란 그릇된 것이며 신념이나 확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태도였고 널리 전파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런 철학들은 약간 종교적이었으며; 종종 기운을 북돋우고 윤리적이며 고귀하기도 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견유주의**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강한 자와 현명한 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었다.

5. 이방 종교

이전의 시대들 내내, 종교는 주로 부족 또는 국가의 관심사였으며; 개인과 관련되는 문제일 경우는 드물었다. 신(神)들은 부족적이거나 국가적이었고, 개인적이지 않았다. 그런 종교 체계들은, 일반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소망에는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예수 시대에 **서양**에 있던 종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이교(異敎)종파들**. 이것들은 **헬라**와 **라틴**의 신화, 애국심, 및 전통의 조합이었다.

man was divine; that it was imprisoned in the evil body of physical nature. Man's soul achieved liberty by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with God; thus virtue came to be its own reward. Stoicism ascended to a sublime morality, ideals never since transcended by any purely human system of philosophy. While the Stoics professed to be the “offspring of God,” they failed to know him and therefore failed to find him. Stoicism remained a philosophy; it never became a religion. Its followers sought to attune their minds to the harmony of the Universal Mind, but they failed to envisage themselves as the children of a loving Father. Paul leaned heavily toward Stoicism when he wrote,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121:4.4 (1336.2) 3. *The Cynic*. Although the Cynics traced their philosophy to Diogenes of Athens, they derived much of their doctrine from the remnants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Cynicism had formerly been more of a religion than a philosophy. At least the Cynics made their religio-philosophy democratic. In the fields and in the market places they continually preached their doctrine that “man could save himself if he would.” They preached simplicity and virtue and urged men to meet death fearlessly. These wandering Cynic preachers did much to prepare the spiritually hungry populace for the later Christian missionaries. Their plan of popular preaching was much after the pattern,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Paul's Epistles.

121:4.5 (1336.3) 4. *The Skeptic*. Skepticism asserted that knowledge was fallacious, and that conviction and assurance were impossible. It was a purely negative attitude and never became widespread.

121:4.6 (1336.4) These philosophies were semireligious; they were often invigorating, ethical, and ennobling but were usually above the common people.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Cynicism, they were philosophies for the strong and the wise, not religions of salvation for even the poor and the weak.

5. THE GENTILE RELIGIONS

121:5.1 (1336.5) Throughout preceding ages religion had chiefly been an affair of the tribe or nation; it had not often been a matter of concern to the individual. Gods were tribal or national, not personal. Such religious systems afforded little satisfaction for the individual spiritual longings of the average person.

121:5.2 (1336.6) In the times of Jesus the religions of the Occident included:

121:5.3 (1336.7) 1. *The pagan cults*. These were a combination of Hellenic and Latin mythology,

2. 황제숭배.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으며, 이런 신격화는, 로마 정부가 두 종파의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하도록 직접 유도했다.

3. 점성술. 바벨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리스_로마 제국 전역에서 종교로 발전했다. 심지어 20세기에도,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믿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4. 신비 종교들. 그토록 영적으로 갈급한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종파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는데, 레반트에서 온 새롭고 색다른 종교들은, 평범한 인간을 매혹시키고 그들에게 개인 구원을 약속했다. 이 종교들은 재빨리, 그리스_로마 세계의 낮은 계층이 받아들인 믿음이 됐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교 교훈이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줬으며, 그리스도교 교훈은, 지식인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신학, 그리고 무지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당시의 평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심오한 제안과 관련하여, 신격에 대한 웅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신비 종교들은 국가적 믿음의 종말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개인 종파를 탄생시켰다. 신비교가 많이 있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1. 약간의 신화적 전설, 일종의 신비--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비교는, 미트라 신교(神敎)의 교훈으로 설명되듯이, 신(神)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됐는데,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신흥 종파와 한동안 공생(共生)하면서 서로 경쟁했다.

2. 신비교는 민족이나 종족에 매이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우애적이었는데, 종교적 형제 관계와 수많은 분파의 단체를 일으켰다.

3. 예배에서 복잡한 입장 예식과 엄숙한 성례(聖禮)가 특징이었다. 그들의 은밀한 제례와 제례식은 때로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런 경우도 있었다.

4. 그러나 그 예식의 본질 또는 그것이 얼마나 지나칠 정도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신비교들은 신봉자에게, 구원, 즉 “악으로부터의 구출, 죽음 이후의 생존, 그리고 슬픔과 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행복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똑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을 이런 신비교와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신비교가 유행함은, 생존을 향한 사람의 추구를 드러내는 것인데, 개인 종교와 개개인의 의로움을 실질적으로 열망하고 목

patriotism, and tradition.

121:5.4 (1336.8) 2. *Emperor worship*. This deification of man as the symbol of the state was very seriously resented by the Jews and the early Christians and led directly to the bitter persecutions of both churches by the Roman government.

121:5.5 (1337.1) 3. *Astrology*. This pseudo science of Babylon developed into a religion throughout the Greco-Roman Empire.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man has not been fully delivered from this superstitious belief.

121:5.6 (1337.2) 4. *The mystery religions*. Upon such a spiritually hungry world a flood of mystery cults had broken, new and strange religions from the Levant, which had enamored the common people and had promised them individual salvation. These religions rapidly became the accepted belief of the lower classes of the Greco-Roman world. And they did much to prepare the way for the rapid spread of the vastly superior Christian teachings, which presented a majestic concept of Deity, associated with an intriguing theology for the intelligent and a profound proffer of salvation for all, including the ignorant but spiritually hungry average man of those days.

121:5.7 (1337.3) The mystery religions spelled the end of national beliefs and resulted in the birth of the numerous personal cults. The mysteries were many but were all characterized by:

121:5.8 (1337.4) 1. Some mythical legend, a mystery — whence their name. As a rule this mystery pertained to the story of some god's life and death and return to life, as illustrated by the teachings of Mithraism, which, for a time, were contemporary with, and a competitor of, Paul's rising cult of Christianity.

121:5.9 (1337.5) 2. The mysteries were nonnational and interracial. They were personal and fraternal, giving rise to religious brotherhoods and numerous sectarian societies.

121:5.10 (1337.6) 3. They were, in their services, characterized by elaborate ceremonies of initiation and impressive sacraments of worship. Their secret rites and rituals were sometimes gruesome and revolting.

121:5.11 (1337.7) 4. But no matter what the nature of their ceremonies or the degree of their excesses, these mysteries invariably promised their devotees salvation, “deliverance from evil, survival after death, and enduring life in blissful realms beyond this world of sorrow and slavery.”

121:5.12 (1337.8)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the teachings of Jesus with the mysteries. The popularity of the mysteries reveals man's quest for survival, thus portraying a real

말라하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그 신비교들이 이런 갈망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기에는 실패했다 라도, 진실로 생명의 빵과 물을 이 세상에 가져온 **예수**께서 출현하도록, 그 길을 예비했다.

바울은, 더 나은 유형의 신비 종교들에 대한 널리 퍼진 신봉을 활용하고자 애쓰면서, 개종이 기대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예수**의 교훈을 어느 정도 개작(改作)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교훈을 (**그리스도교**) 절충시켰더라도, 신비교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세했다:

1. **바울**은 도덕적인 구속(救贖), 윤리적인 구원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삶을 지시하고 새로운 이상(理想)을 선포했다. **바울**은 마술적인 제례와 예식적인 요술을 거부했다.

2. **그리스도교**는, 슬픔,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된 뒤에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의로운 성품의 기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붙잡은 종교를 출현시켰다.

3. 신비교들은 신화(神話)에 기초했다.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미가엘**이 인류에게 증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다.

이방인 사이에서, 도덕성은 종교나 철학과 반드시 관련돼 있지는 않았다.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도덕적 삶 역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하지는 않았다. **유대**의 종교와, 뒤를 이은 **예수**의 교훈,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발전시킨 **그리스도교**는, 한 손은 도덕 위에, 또 한 손은 윤리 위에 놓고, 신자들이 이 두 가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럽** 종교가 됐다.

예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철학체계와 복잡한 종파들의 종교에 지배당함으로써 혼란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세대 속으로 **팔레스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바로 이 세대에게, 개인 종교인 자신의 복음--곧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시했다.

6. 히브리 종교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종교 사상은, **그리스** 문화의 교훈에,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고, 어느 정도 변경돼 있었다. **히브리** 사상에 대한 **동방** 학파들과 **서방** 학파들의 견해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뤄지던 중에, **예루살렘**과 그 외의 **서양** 지역 그리고 **레반트**는, 일반적으로 **서방**의 **유대** 관점 또는 변경된 **헬라** 관점을 택했다.

hunger and thirst for personal religion and individual righteousness. Although the mysteries failed adequately to satisfy this longing, they did prepare the way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Jesus, who truly brought to this world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thereof.

121:5.13 (1337.9) Paul, in an effort to utilize the widespread adherence to the better types of the mystery religions, made certain adaptations of the teachings of Jesus so as to render them more acceptable to a larger number of prospective converts. But even Paul's compromise of Jesus' teachings (Christianity) was superior to the best in the mysteries in that:

121:5.14 (1337.10) 1. Paul taught a moral redemption, an ethical salvation. Christianity pointed to a new life and proclaimed a new ideal. Paul forsook magic rites and ceremonial enchantments.

121:5.15 (1337.11) 2. Christianity presented a religion which grappled with final solutions of the human problem, for it not only offered salvation from sorrow and even from death, but it also promised deliverance from sin followed by the endowment of a righteous character of eternal survival qualities.

121:5.16 (1338.1) 3. The mysteries were built upon myths. Christianity, as Paul preached it, was founded upon a historic fact: the bestowal of Michael, the Son of God, upon mankind.

121:5.17 (1338.2) Morality among the gentiles was not necessarily related to either philosophy or religion. Outside of Palestine it not always occurred to people that a priest of religion was supposed to lead a moral life. Jewish religion and subsequently the teachings of Jesus and later the evolving Christianity of Paul were the first European religions to lay one hand upon morals and the other upon ethics, insisting that religionists pay some attention to both.

121:5.18 (1338.3) Into such a generation of men, dominated by such incomplete systems of philosophy and perplexed by such complex cults of religion, Jesus was born in Palestine. And to this same generation he subsequently gave his gospel of personal religion — sonship with God.

6. THE HEBREW RELIGION

121:6.1 (1338.4) By the close of the first century before Christ the religious thought of Jerusalem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and somewhat modified by Greek cultural teachings and even by Greek philosophy. In the long contest between the views of the Eastern and Western schools of Hebrew though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ident and the Levant in general adopted the Western Jewish or modified Hellenistic viewpoint.

예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세 언어가 통용 됐는데: 보통사람은 **아람어** 방언을; 제사장과 랍비는 **히브리어**를; 교육받은 계층과 상류 계층 **유대인**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초기 **히브리** 성서는, 나중에 주류(主流)를 이루게 된 **그리스파**의 **유대** 문화 및 신학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사들의 기록이, 같은 언어로 곧 출현하게 됐다. **유대주의**의 부흥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때부터 시작된다. 나중에 **바울**의 **그리스도교** 중파가 **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서방**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결정되는 데 이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헬라화된 **유대인**의 믿음은, **에피쿠로스학파** 교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플라톤** 철학과, **금욕주의자**의 자아_부정 교리에 매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금욕주의**에 크게 잠식당했다는 사실은, **마카비서 제4권**에 잘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 철학뿐 아니라 **금욕주의** 교리들 역시 침투해 있었음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다. **헬라화**된 **유대인**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히브리** 신학에 접목시키는 일에 별로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런 우화적 해석을 **히브리** 성서에 적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문제를 맡아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간단하고 비교적 모순 없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으로 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전에는, 극도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서 가르치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성행하던 것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이 합쳐진 이 후대의 가르침이었으며,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진보되고 계몽시키는 **그리스도교**라는 종파를 세우는 기초로 활용했다.

필로는 위대한 선생이었으며; **서양** 세계의 윤리 및 종교 사상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모세** 이후로는 없었다. 윤리 및 종교 교훈이라는 동시 발생적 체계 속에, 더욱 훌륭한 요소를 결합하는 일에서, 일곱 명의 탁월한 인간 선생이 있었는데; **세타드**, **모세**, **조로아스터**, **노자**, **부다**, **필로**, 및 **바울**이었다.

필로의 모순점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그리스**의 신비 철학과 **로마**의 **금욕주의** 교리,를 율법적인 **히브리** 신학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을 인식한 **바울**은, **그리스도교** 이전에 자신이 지녔던 기본 신학에서 이를 현명하게 제거했다. **필로**는, **유대** 신학 안에서 오랫동안 동면해 오던 **낙원 삼위일체** 개념을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로, **바울**을 인도했다. **바울**이 **필로**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거나, 또는 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교훈을 넘어서지 못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속죄에 관한 교

121:6.2 (1338.5) In the days of Jesus three languages prevailed in Palestine: The common people spoke some dialect of Aramaic; the priests and rabbis spoke Hebrew; the educated classes and the better strata of Jews in general spoke Greek. The early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into Greek at Alexandria was responsible in no small measure for the subsequent predominance of the Greek wing of Jewish culture and theology. And the writings of the Christian teachers were soon to appear in the same language. The renaissance of Judaism dates from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This was a vital influence which later determined the drift of Paul's Christian cult toward the West instead of toward the East.

121:6.3 (1338.6) Though the Hellenized Jewish beliefs were very little influenced by the teachings of the Epicureans, they were very materially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Plato and the self-abnegation doctrines of the Stoics. The great inroad of Stoicism is exemplified by the Fourth Book of the Maccabees; the penetration of both Platonic philosophy and Stoic doctrines is exhibited in the Wisdom of Solomon. The Hellenized Jews brought to the Hebrew scriptures such an allegorical interpretation that they found no difficulty in conforming Hebrew theology with their revered Aristotelian philosophy. But this all led to disastrous confusion until these problems were taken in hand by Philo of Alexandria, who proceeded to harmonize and systemize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into a compact and fairly consistent system of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nd it was this later teaching of combined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that prevailed in Palestine when Jesus lived and taught, and which Paul utilized as the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his more advanced and enlightening cult of Christianity.

121:6.4 (1338.7) Philo was a great teacher; not since Moses had there lived a man who exerted such a profound influence on the ethical and religious thought of the Occidental world. In the matter of the combination of the better elements in contemporaneous systems of ethical and religious teachings, there have been seven outstanding human teachers: Sethard, Moses, Zoroaster, Lao-tse, Buddha, Philo, and Paul.

121:6.5 (1339.1) Many, but not all, of Philo's inconsistencies resulting from an effort to combine Greek mystical philosophy and Roman Stoic doctrines with the legalistic theology of the Hebrews, Paul recognized and wisely eliminated from his pre-Christian basic theology. Philo led the way for Paul more fully to restore the concept of the Paradise Trinity, which had long been dormant in Jewish theology. In only one matter did Paul fail to keep pace with Philo or to transcend the teachings of this wealthy and educated Jew of Alexandria, and that was the doctrine of the

리였으며; **필로**는 오직 피 흘림으로써만 용서 받는다는 교리로부터 해방되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사고 조울사**의 실체와 현존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알아차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 이론, 즉 유전적 죄와 타고난 악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구출에 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드라** 숭배에서 기원했으며,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또는 **예수**의 교훈과는 거의 상관없었다. 원죄와 속죄에 대한 **바울**의 교훈 중에서 어떤 국면들은 그의 창작품이었다.

예수의 이 세상 생애를 기록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서방** 민족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필로**의 교훈도 동시에 따르고 있던,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리스도 시대 무렵에, **유대인**에 대한 이상하게 뒤집힌 정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했고, 전에 **유대인**의 근거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지독한 **유대인** 박해 물결이 시작되어 심지어 **로마**까지 확장됐으며, 거기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추방됐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운동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황제가 다스리는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국 전역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유대인**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줬다.

광범한 전 세계 도처에서, 상업 또는 박해로 인해 스스로 흩어졌던 **유대인**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일제히 집중했다. **유대인** 신학은, 특정한 **바빌로니아** 선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번 구출됐음에도, **예루살렘**에서 해석하고 실천해왔던 그대로 유지됐다.

흩어져 살던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은, 민족적 종교 축제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곤 했다. **동방**(곧 **바빌로니아**)의 **유대인**과 **서방**(곧 **헬라**)의 **유대인**이,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서로 차이 있었음에도,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을 경배 중심지로 여겼으며, 곧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대망했다.

7.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인**은 그들의 근원, 역사, 및 운명에 대해 확정된 개념에 도달했다. 그들은 자신과 이방세계 사이를 분리하는 견고한 벽을 쌓았으며; 이방인의 방식은 무엇이든지 심하게 경멸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 자체를 숭배했고, 혈통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에 근거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틀에 빠졌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 이미 여러 선입견을 만들었으며; 이런 대부분의 기대는, 그들의 나라 및 종족 역사의 한

atonement; Philo taught deliverance from the doctrine of forgiveness only by the shedding of blood. He also possibly glimpsed the reality and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more clearly than did Paul. But Paul's theory of original sin, the doctrines of hereditary guilt and innate evil and redemption therefrom, was partially Mithraic in origin, having little in common with Hebrew theology, Philo's philosophy, or Jesus' teachings. Some phases of Paul's teachings regarding original sin and the atonement were original with himself.

121:6.6 (1339.2) The Gospel of John, the last of the narratives of Jesus' earth life, was addressed to the Western peoples and presents its story much in the light of the viewpoint of the later Alexandrian Christians, who were also disciples of the teachings of Philo.

121:6.7 (1339.3) At about the time of Christ a strange reversion of feeling toward the Jews occurred in Alexandria, and from this former Jewish stronghold there went forth a virulent wave of persecution, extending even to Rome, from which many thousands were banished. But such a campaign of misrepresentation was short-lived; very soon the imperial government fully restored the curtailed liberties of the Jews throughout the empire.

121:6.8 (1339.4) Throughout the whole wide world, no matter where the Jews found themselves dispersed by commerce or oppression, all with one accord kept their hearts centered on the holy temple at Jerusalem. Jewish theology did survive as it was interpreted and practiced at Jerusalem, notwithstanding that it was several times saved from oblivion by the timely intervention of certain Babylonian teachers.

121:6.9 (1339.5) As many as two and one-half million of these dispersed Jews used to come to Jerusalem for the celebration of their national religious festivals. And no matter what the theologic or philosophic differences of the Eastern (Babylonian) and the Western (Hellenic) Jews, they were all agreed on Jerusalem as the center of their worship and in ever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7. JEWS AND GENTILES

121:7.1 (1339.6) By the times of Jesus the Jews had arrived at a settled concept of their origin, history, and destiny. They had built up a rigid wall of separ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gentile world; they looked upon all gentile ways with utter contempt. They worshiped the letter of the law and indulged a form of self-righteousness based upon the false pride of descent. They had formed preconceived notions regarding the promised

부분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상상하게 했다. 당시 **히브리인**에게 **유대** 신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되고 영원히 고착된 상태였다.

아량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교훈과 실천은,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어온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대인**이 키워온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는,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방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야훼**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그런 새롭고 생소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서기관, **바리새인**, 및 제사장들이, 제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지독한 굴레를 **유대인**에게 씌워 놓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정치 기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은 율법에 예속됐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요구에 노예처럼 속박돼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개인 및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일일이 간섭하고 침범했다. 이런 세세한 행동 규칙이 모든 충실한 **유대인**을 따라다니고 지배했으며, 신성시되는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받아들여 온 사회 운영 규칙을 감히 경멸하는,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들이 즉시 제거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리와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의 교훈을, 선의로 봐줄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의 율법을 그들에게 줬고, 그들은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가 되자, 명망 있는 선생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 말로 해석한 것이, 문자화된 율법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됐다. 그리고 특정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대열에 서도록 하기가 더 쉬웠다.

유대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종교적 자유와 영적 해방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은 전통의 족쇄를 깨뜨릴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돼야 할 율법”을 이야기했고, **에스겔**은 “사람의 혼 속에 살게 될 새로운 영”을 말했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속에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선한 행위와 율법에 노예가 된 **유대** 종교가 전통적 타성의 침체에 희생자로 전락했을 때, 종교적 발전의 움직임은 **유럽인**을 향해서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진보하는 신학, 즉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인**의 법, **히브리인**의 도덕성, 및 **예수**의 교

Messiah, and most of these expectations envisaged a Messiah who would come as a part of their national and racial history. To the Hebrews of those days Jewish theology was irrevocably settled, forever fixed.

121:7.2 (1339.7)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Jesus regarding tolerance and kindness ran counter to the long-standing attitude of the Jews toward other peoples whom they considered heathen. For generations the Jews had nourished an attitude toward the outside world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accept the Master's teachings about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They were unwilling to share Yahweh on equal terms with the gentiles and were likewise unwilling to accept as the Son of God one who taught such new and strange doctrines.

121:7.3 (1340.1) The scribes, the Pharisees, and the priesthood held the Jews in a terrible bondage of ritualism and legalism, a bondage far more real than that of the Roman political rule. The Jews of Jesus' time were not only held in subjugation to the law but were equally bound by the slavish demands of the traditions, which involved and invaded every domain of personal and social life. These minute regulations of conduct pursued and dominated every loyal Jew, and it is not strange that they promptly rejected one of their number who presumed to ignore their sacred traditions, and who dared to flout their long-honored regulations of social conduct. They could hardly regard with favor the teachings of one who did not hesitate to clash with dogmas which they regarded as having been ordained by Father Abraham himself. Moses had given them their law and they would not compromise.

121:7.4 (1340.2) By the time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spoken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recognized teachers, the scribes, had become a higher authority than the written law itself. And all this made it easier for certain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to array the people against the acceptance of a new gospel.

121:7.5 (1340.3) These circumstances rendered it impossible for the Jews to fulfill their divine destiny as messengers of the new gospel of religious freedom and spiritual liberty. They could not break the fetters of tradition. Jeremiah had told of the “law to be written in men's hearts,” Ezekiel had spoken of a “new spirit to live in man's soul,” and the Psalmist had prayed that God would “create a clean heart within and renew a right spirit.” But when the Jewish religion of good works and slavery to law fell victim to the stagnation of traditionalistic inertia, the motion of religious evolution passed westward to the European peoples.

121:7.6 (1340.4) And so a different people were called upon to carry an advancing theology to the world, a

훈에 근거하고 **바울**이 조직적으로 만든, 인격의 존엄성과 영적 자유를 외치는 복음 등을 포함하는 교육 체계를 세계로 전파하는 일에, 다른 민족이 부름을 받게 됐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종파는, **유대교**에서 출생한 흔적을 그 종파의 도덕성으로 보여줬다. **유대인**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곧 일하시는 **아훼**의 섭리--로 여겼다. 영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개념을 새로운 가르침에 전해준 것은 **그리스인**이었다. **바울**의 교리는, 신학과 철학 면에서 **예수**의 교훈뿐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윤리 면에서, 그는 **예수**뿐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에게서도 영감(靈感)을 받았다.

예수의 복음은, **바울**의 **안디옥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구체화됐듯이, 다음과 같은 교훈과 혼합됐다:

1. **유대주의**로 개종한 **그리스인**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들의 개념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는, 철학적 논법.

2. 널리 퍼져 있던 신비 종파들의 매혹적인 교훈, 특히 어떤 신이 희생됨으로써 이뤄진, 구속, 속죄, 및 구원에 대한 **미드라교**의 교리.

3. 이미 확립된 **유대** 종교의 탄탄한 도덕성.

예수 시대에, **지중해의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인접된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세계 지리, 천문학, 건강, 및 질병 등에 대해서 아주 미숙하고 원시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나사렛** 목수의 새롭고 놀라운 선언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선령(善靈)과 악령을 소유한다는 관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 모든 바위와 나무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마법(魔法)이 성행하던 시대였으며, 기적이 보통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모두 믿었다.

8.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

우리가 받은 명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유란시아**에 있는 기존의 기록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분실된 **사도 안드레**의 기록을 읽어 볼 수 있는 기쁨도 누렸고, **미가엘**이 증여했던 기간에 이 세상에 있었던 다양한 천상의 존재 무리(특히 지금 그의 **인격화된 조울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소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칭하는 복음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이 **신약 성경** 기록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기원했다:

system of teaching embodying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the law of the Romans, the morality of the Hebrews, and the gospel of personality sanctity and spiritual liberty formulated by Paul and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121:7.7 (1340.5) Paul's cult of Christianity exhibited its morality as a Jewish birthmark. The Jews viewed history as the providence of God — Yahweh at work. The Greeks brought to the new teaching clearer concepts of the eternal life. Paul's doctrines were influenced in theology and philosophy not only by Jesus' teachings but also by Plato and Philo. In ethics he was inspired not only by Christ but also by the Stoics.

121:7.8 (1340.6) The gospel of Jesus, as it was embodied in Paul's cult of Antioch Christianity, became blended with the following teachings:

121:7.9 (1340.7) 1. The philosophic reasoning of the Greek proselytes to Judaism, including some of their concepts of the eternal life.

121:7.10 (1340.8) 2. The appealing teachings of the prevailing mystery cults, especially the Mithraic doctrines of redemption, atonement, and salvation by the sacrifice made by some god.

121:7.11 (1340.9) 3. The sturdy morality of the established Jewish religion.

121:7.12 (1341.1) The Mediterranean Roman Empire, the Parthian kingdom, and the adjacent peoples of Jesus' time all held crude and primitive ideas regarding the geography of the world, astronomy, health, and disease; and naturally they were amazed by the new and startling pronouncements of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ideas of spirit possession, good and bad, applied not merely to human beings, but every rock and tree was viewed by many as being spirit possessed. This was an enchanted age, and everybody believed in miracles as commonplace occurrences.

8. PREVIOUS WRITTEN RECORDS

121:8.1 (1341.2) As far as possible, consistent with our mandate, we have endeavored to utilize and to some extent co-ordinate the existing records having to do with the life of Jesus on Urantia. Although we have enjoyed access to the lost record of the Apostle Andrew and have benefited from the collaboration of a vast host of celestial beings who were on earth during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notably his now Personalized Adjuster), it has been our purpose also to make use of the so-called Gospels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121:8.2 (1341.3) These New Testament records had their origi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마가복음**. 요한 마가는 예수의 생애에 관해 (안드레의 기록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가장 간결하고 가장 담백하게 기록했다. 그는 주님을 한 사역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했다. 마가는 자신이 서술한 대부분의 장면들 주변에 한 소년으로서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 따른 **복음서**다. 그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연합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부탁으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간곡한 청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다. 마가는, 주님이 세상에서 육신 속에 있는 동안 자신의 교훈을 글로 남기기를 얼마나 일관되게 거부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 및 다른 수제자(首弟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런 기록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마가가 그 준비를 담당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베드로**가 서기 67년에 죽기 전까지 간단한 기록을 많이 만들었으며, **베드로**가 승인한 전체 윤곽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죽은 직후부터 이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 **복음서**는 서기 68년 말쯤에 완성됐다. 마가는 순전히 자신과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썼다. 그 기록은 그 후에 상당히 변경됐는데, 최초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5분의 1은 첫 원본이 복사되기 전에 유실(遺失)됐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후일의 어떤 사건들이 끝 부분에 삽입됐다. 마가가 쓴 이 기록은, **안드레** 및 **마태**의 기록과 결합되면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묘사하려 했던, 차후의 모든 성문화된 **복음서**의 기초가 됐다.

2. **마태복음**. 소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유대 그리스도교인**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쓴, **주**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의 저자는, **예수**의 생애에서 그가 행한 대부분의 사건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했다. **마태**의 **복음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는데,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 **마태**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사도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마태**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십자가형 직후에 **이사도르**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들의 도움도 받았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람어**로 돼있었으며; **이사도르**는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이 글을 **마태**의 작품이라고 공언할 때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마태의 원래 기록은, 서기 40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직전까지 편집되고 첨가됐다. 그것은 사적(私的)인 기록이었으며, 그 마지막 사본(寫本)은, 서기 416년에 **시리아** 수도원이 불탔을 때 파괴됐다.

121:8.3 (1341.4) 1. *The Gospel by Mark*. John Mark wrote the earliest (excepting the notes of Andrew), briefest, and most simple record of Jesus' life. He presented the Master as a minister, as man among men. Although Mark was a lad lingering about many of the scenes which he depicts, his record is in reality the Gospel according to Simon Peter. He was early associated with Peter; later with Paul. Mark wrote this record at the instigation of Peter and on the earnest petition of the church at Rome. Knowing how consistently the Master refused to write out his teachings when on earth and in the flesh, Mark, like the apostles and other leading disciples, was hesitant to put them in writing. But Peter felt the church at Rome required the assistance of such a written narrative, and Mark consented to undertake its preparation. He made many notes before Peter died in A.D. 67, and in accordance with the outline approved by Peter and for the church at Rome, he began his writing soon after Peter's death. The Gospel was completed near the end of A.D. 68. Mark wrote entirely from his own memory and Peter's memory. The record has since been considerably changed, numerous passages having been taken out and some later matter added at the end to replace the latter one fifth of the original Gospel, which was lost from the first manuscript before it was ever copied. This record by Mark, in conjunction with Andrew's and Matthew's notes, was the written basis of all subsequent Gospel narratives which sought to portray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121:8.4 (1341.5) 2. *The Gospel of Matthew*.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Matthew is the record of the Master's life which was written for the edification of Jewish Christians. The author of this record constantly seeks to show in Jesus' life that much which he did was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Matthew's Gospel portrays Jesus as a son of David, picturing him as showing great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rophets.

121:8.5 (1341.6) The Apostle Matthew did not write this Gospel. It was written by Isador, one of his disciples, who had as a help in his work not only Matthew's personal remembrance of these events but also a certain record which the latter had made of the sayings of Jesus directly after the crucifixion. This record by Matthew was written in Aramaic; Isador wrote in Greek. There was no intent to deceive in accrediting the production to Matthew. It was the custom in those days for pupils thus to honor their teachers.

121:8.6 (1342.1) Matthew's original record was edited and added to in A.D. 40 just before he left Jerusalem to engage in evangelistic preaching. It was a private record, the last copy having been destroyed in the burning of a Syrian monastery in A.D. 416.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 기록들을 지니고 성을 빠져 나와서 **펠라**로 도피했다. **펠라**에서 살고 있던 71년에,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 기록들에 의거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는 또한 **마가**의 기록 중에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을 갖고 있었다.

3. **누가복음**. **피시디아 안디옥**의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로 인해 개종된 이방인이었고, **주님**의 생애에 관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는 서기 47년에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배웠다. **누가**는,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부터 이 사실을 수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보관했다. 그는 **주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묘사했다. 그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여러 단편 기록을 **복음서**로 조직화하지 않았다. **누가**는 **아가야**에서 82년에 기록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을 쓸 계획이었으나, 둘째 책인 “**사도행전**”이 완성되기 직전인 서기 90년에 죽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편집하기 위한 재료로서, 먼저 **바울**이 자기 체험과 관련시켜서 말했던, **예수**의 생애에 대한 자료에 의존했다. 따라서 **누가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로 말미암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정보자료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여러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과 면담했을 뿐만 아니라,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의 **마가복음** 사본을 갖고 있었으며, **이사도르**의 글, 그리고 서기 78년에 **안디옥**에서 **세데스**라는 한 신자가 쓴 간단한 기록도 갖고 있었다. **누가**는 또한 **사도 안드레**가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종합적이고 많이_편집된 어떤 기록의 사본도 갖고 있었다.

4.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다른 기록들에서 볼 수 없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근방에서 활동하신 일이 많이 기록돼 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고 불렸으며, 비록 **요한**이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붙여넣었다. 이것이 처음 기록된 후에, 바로 **요한**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편집됐다. 이 기록이 작성됐을 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것이 생략돼 있음을 발견했으며; 따라서 그는, 서기 101년에 **가이사랴**에서 온, **그리스 유대인**인 동료 **나단**을 설득해서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요한**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재료를 그에게 제공했고, 이미 기록된 세 권의 기록을 참고토록 했다. 그가 직접 쓴 기록은 없었다. “**요한1서**”라고 알려진 **서신서**는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그의 지시에 따라서 **나단**이 기록한 작품의 서언{序言}에 해당하는 편지였다.

이 저자들은 모두, 자신이 **예수**를 본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은 그에 대해 배운 대로, 그리고 나중에 지지 받게 된 **바울**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오

121:8.7 (1342.2) Isador escaped from Jerusalem in A.D. 70 after the investment of the city by the armies of Titus, taking with him to Pella a copy of Matthew's notes. In the year 71, while living at Pella, Isador wrot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He also had with him the first four fifths of Mark's narrative.

121:8.8 (1342.3) 3. *The Gospel by Luke*. Luke, the physician of Antioch in Pisidia, was a gentile convert of Paul, and he wrote quite a different story of the Master's life. He began to follow Paul and learn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in A.D. 47. Luke preserves much of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his record as he gathered up these facts from Paul and others. Luke presents the Master as “the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He did not formulate his many notes into the Gospel until after Paul's death. Luke wrote in the year 82 in Achaia. He planned three books dealing with the history of Christ and Christianity but died in A.D. 90 just before he finished the second of these works, the “Acts of the Apostles.”

121:8.9 (1342.4) As material for the compilation of his Gospel, Luke first depended upon the story of Jesus' life as Paul had related it to him. Luke's Gospel is, therefore, in some ways the Gospel according to Paul. But Luke ha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He not only interviewed scores of eyewitnesses to the numerous episodes of Jesus' life which he records, but he also had with him a copy of Mark's Gospel, that is, the first four fifths, Isador's narrative, and a brief record made in the year A.D. 78 at Antioch by a believer named Cedus. Luke also had a mutilated and much-edited copy of some notes purported to have been made by the Apostle Andrew.

121:8.10 (1342.5) 4. *The Gospel of Joh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relates much of Jesus' work in Judea and around Jerusalem which is not contained in the other records. This is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son of Zebedee, and though John did not write it, he did inspire it. Since its first writing it has several times been edited to make it appear to have been written by John himself. When this record was made, John had the other Gospels, and he saw that much had been omitted; accordingly, in the year A.D. 101 he encouraged his associate, Nathan, a Greek Jew from Caesarea, to begin the writing. John supplied his material from memory and by reference to the three records already in existence. He had no written records of his own. The Epistle known as “First John” was written by John himself as a covering letter for the work which Nathan executed under his direction.

121:8.11 (1342.6) All these writers presented honest pictures of Jesus as they saw, remembered, or had learned of him, and as their concepts of these

래 전의 이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영향 받은 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기록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란시아** 역사의 진로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감사(感謝)의 글: **나사렛 예수**의 교훈을 다시 진술하고 활동을 다시 이야기하는 내 위탁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기록된 모든 자료와 행성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했다. 나의 주요 동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를 계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록을 준비함에 있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보만 선택했다. 가능한 한, 나는 순전히 인간 세계의 자료들로부터 내 정보를 도출하려고 했다. 나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초인적인 그 기록들의 도움을 받았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어떤 인간 정신이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 나는 그런 명백하게 인간적인 사고 유형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줬다. 나는 **주님**의 생애와 교훈의 실제 의미와 진정한 뜻에 대한 우리 개념에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단어 표현을 조정하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한 내 서술 전체에서 실제 인간 개념과 사고(思考) 원형에 충실했다. 인간의 정신에서 생겨난 이 개념들이, 다른 모든 인간 정신에게도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움 될 수 있음이 입증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인간의 기록이나 인간의 표현에서 필요한 개념을 찾아낼 수 없을 때, 내가 소속된 지상 피조물 계층인 중도자들의 기억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2차 정보 자료가 부적당한 경우에, 주저하지 않고 초행성 정보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사도 안드레의 기록에 대한 기억은 별도로 하고 -- **예수** 시대부터 이 계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진술하는 이 기록을 쓸 때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2천 명 이상의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예수**의 교훈에 관한 주옥같은 사상과 최고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가 수집해 온 메모들로부터, 나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 서술문을 준비했다. 인간의 기록과 인간의 개념들이 적절한 사고(思考) 원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된 계시를 활용해 왔다. 내가 소속된 계시 위원회는, 내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자료로부터 요구된 개념적 표현을 찾아내고자 수고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간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정보나 표현의 자료에도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나는 11인의 연합한 동료 중도자들의 협력과, 기록을 담당하는 **멜기세덱**의 감독 하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려는 내 개념에 맞도록, 그리고

distant events were affected by their subsequent espousal of Paul's theology of Christianity. And these records, imperfect as they are, have been sufficient to change the course of the history of Urantia for almost two thousand years.

121:8.12 (1343.1) [Acknowledgment: In carrying out my commission to restate the teachings and retell the doings of Jesus of Nazareth, I have drawn freely upon all sources of record and planetary information. My ruling motive has been to prepare a record which will not only be enlightening to the generation of men now living, but which may also be helpful to all future generations. From the vast store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me, I have chosen that which is best sui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is purpose. As far as possible I have derived my information from purely human sources. Only when such sources failed, have I resorted to those records which are superhuman. When ideas and concepts of Jesus' life and teachings have been acceptably expressed by a human mind, I invariably gave preference to such apparently human thought patterns. Although I have sought to adjust the verbal expression the better to conform to our concept of the real meaning and the true import of the Master's life and teachings, as far as possible, I have adhered to the actual human concept and thought pattern in all my narratives. I well know that those concepts which have had origin in the human mind will prove more acceptable and helpful to all other human minds. When unable to find the necessary concepts in the human records or in human expressions, I have next resorted to the memory resources of my own order of earth creatures, the midwayers. And when that secondary source of information proved inadequate, I have unhesitatingly resorted to the superplanetary sources of information.

121:8.13 (1343.2) The memoranda which I have collected, and from which I have prepared this narrative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 aside from the memory of the record of the Apostle Andrew — embrace thought gems and superior concepts of Jesus' teachings assembled from more than two thousand human beings who have lived on earth from the days of Jesus down to the time of the inditing of these revelations, more correctly restatements. The revelatory permission has been utilized only when the human record and human concepts failed to supply an adequate thought pattern. My revelatory commission forbade me to resort to extrahuman sources of either information or expression until such a time as I could testify that I had failed in my efforts to find the required conceptual expression in purely human sources.

121:8.14 (1343.3) While I, with the collaboration of my eleven associate fellow midwayer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 of record, have

직접 표현하기로 한 내 선택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 활용한 그 관념들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효과적인 표현들 가운데 일부분은, 이 일을 떠맡기 시작할 때 아직 살아있던 자들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세대들 동안 지구에 살아왔던, 여러 인종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그것들의 원천을 활용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내가 직접 이야기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 나는 인간 개념과 관념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내가 **예수**의 생애를 묘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창작성을 제공했고, 내가 **예수**의 비길 데 없는 교훈을 다시 기록할 때, 가장 현저하게 도움을 주고, 가장 보편적인 어법(語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 줬다. **유란시아**에 있는 **결합된 중도자 형제단체**를 대신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다시 서술하는 자세한 글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들의 기록과 개념의 모든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은혜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다.]

portrayed this narrative in accordance with my concept of its effective arrangement and in response to my choice of immediate expression,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ideas and even some of the effective expressions which I have thus utilized had their origin in the minds of the men of many races who have lived on earth during the intervening generations, right on down to those who are still alive at the time of this undertaking. In many ways I have served more as a collector and editor than as an original narrator. I have unhesitatingly appropriated those ideas and concepts, preferably human, which would enable me to create the most effective portraiture of Jesus' life, and which would qualify me to restate his matchless teachings in the most strikingly helpful and universally uplifting phraseology. In behalf of the Brotherhood of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I most gratefully acknowledge our indebtedness to all sources of record and concept which have been hereinafter utilized in the further elaboration of our restatement of Jesus' life on earth.]

제122편. 예수와 유아시절

⇨ 121

유란시아 책

123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22편

예수와의 탄생과 유아시절

섹션

소개

1. 요셉과 마리아
2.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출현함
3.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림
4. 요셉의 꿈
5. 예수와 이 세상 부모
6. 나사렛 고향집
7. 베들레헴 여행
8. 예수와 탄생
9. 성전 예식에 참여함
10. 헤롯의 행동

PAPER 122

BIRTH AND INFANCY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Joseph and Mary
2. Gabriel Appears to Elizabeth
3.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4. Joseph's Dream
5. Jesus' Earth Parents
6. The Home at Nazareth
7. The Trip to Bethlehem
8. The Birth of Jesus
9.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10. Herod Acts

소개

왜 팔레스타인이 미가엘의 증여를 위한 땅으로 선택됐는지, 그리고 특히 유란시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됐는지, 여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가엘은, 격리된 세계들의 상태에 대해 멜기세덱들이 작성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가브리엘과 의논하여,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수행할 행성으로 유란시아를 최종 선택했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가브리엘이 유란시아를 직접 방문했고, 인간 집단들에 대한 검토와, 그 세계 및 민족들의 영적, 지적, 인종적, 및 지리적 특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는 증여될 종족으로 당연히 선택될 만한 상대적 장점을 히브리인이 갖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미가엘이 허락함에 따라서, 가브리엘은 유대인 가정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위임받은 --높은 우주 인격체 계층들 중에서 선택된-- 12인 가족 위원회를 임명하여 유란시아로 파견했다. 이 위원회가 임무를 끝냈을 때, 가브리

INTRODUCTION

122:0.1 (1344.1) IT WILL hardly be possible fully to explain the many reasons which led to the selection of Palestine as the land for Michael's bestowal, and especially as to just why the family of Joseph and Mary should have been chosen as the immediate setting for the appearance of this Son of God on Urantia.

122:0.2 (1344.2) After a study of the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segregated worlds prepared by the Melchizedeks, in counsel with Gabriel, Michael finally chose Urantia as the planet whereon to enact his final bestowal. Subsequent to this decision Gabriel made a personal visit to Urantia, and, as a result of his study of human groups and his survey of the spiritual, intellectual, racial, and geographic features of the world and its peoples, he decided that the Hebrews possessed those relative advantages which warranted their selection as the bestowal race. Upon Michael's approval of this decision, Gabriel appointed and dispatched to Urantia the Family Commission of

엘이 유란시아에 나타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의 의견으로, **미가엘**의 기획된 육신화{肉身化}를 위하여 증여 가족이 되기에 동등하게 적합한, 세 쌍의 기대되는 부부를 추천한다는 내용이었다.

가브리엘은, 추천된 세 쌍 중에서 직접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 후에 몸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증여될 그 아이의 이 세상 어머니가 되도록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줬다.

1. 요셉과 마리아

예수(곧 **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아버지인 **요셉**은 정통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선조들 중에서 여자 혈통 쪽으로, 이따금 비-**유대인** 종족 계통이 족보에 많이 첨가됐다.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유서 깊은 족장 시대를 지나서 더 초기 유전 혈통 쪽으로 가면, **수메르인**과 **넛족속**을 거쳐, 고대 청색인으로 이뤄진 남부 지방 부족들을 지나서, **안돈**과 **휠타**까지 이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 조상의 직계 혈통에 속하지 않았고, **요셉**의 가계{家系}는 **아담**에게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다. **요셉**의 직계 선조는 기능공이었다--곧 건축가, 목수, 석공, 대장장이였다. **요셉** 본인은 목수였고, 후에는 하청업자로 일했다. 그의 가족은, 평민 중에서 귀족에 해당하는 오래되고 저명한 혈통에 속했는데, **유란시아**에서 종교 진보와 관련해 스스로 탁월함을 드러낸 비범한 인재들이 출현함으로써 이따금씩 돋보였다.

예수의 이 세상 어머니인 **마리아**는, **유란시아** 인종 역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여자 가운데 다수를 포함하는, 독특한 조상으로 이뤄진 오래된 혈통의 후손이었다. 비록 **마리아**가, 그 시대 및 세대 중에서 평범한 여자였고, 상당히 전형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선조 중에는, **아논**, **다말**, **룻**, **밧세바**, **앤시**, **클로아**, **이브**, **엔타**와 **라타** 등의 저명한 여자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어떤 **유대** 여자도, 더 유명한 평민 조상의 가계를 갖거나, 더 좋은 시조(始祖)로 거슬러 올라갈 만한 가계에 속하지 않았다. **요셉**처럼 **마리아**의 조상도, 강하지만 평범한 개인들의 탁월성이 특징이었으며, 문명화 에스 그리고 종교의 점진적 진화 행진에서 다수의 걸출한 개인으로 인해 때때로 돋보였다. 종족면에서 본다면, **마리아**를 **유대인**으로 간주하기에는 거의 적당하지 않다. 문화와 믿음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적 재능에서는, **시리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리스**, 및 **이집트** 혈통에 더 가까웠

Twelve — selected from among the hig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 which was intrusted with the task of making an investigation of Jewish family life. When this commission ended its labors, Gabriel was present on Urantia and received the report nominating three prospective unions as being,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 equally favorable as bestowal families for Michael's projected incarnation.

122:0.3 (1344.3) From the three couples nominated, Gabriel made the personal choice of Joseph and Mary, subsequently making his personal appearance to Mary, at which time he imparted to her the glad tidings that she had been selected to become the earth mother of the bestowal child.

1. JOSEPH AND MARY

122:1.1 (1344.4) Joseph, the human father of Jesus (Joshua ben Joseph), was a Hebrew of the Hebrews, albeit he carried many non-Jewish racial strains which had been added to his ancestral tree from time to time by the female lines of his progenitors. The ancestry of the father of Jesus went back to the days of Abraham and through this venerable patriarch to the earlier lines of inheritance leading to the Sumerians and Nodites and, through the southern tribes of the ancient blue man, to Andon and Fonta. David and Solomon were not in the direct line of Joseph's ancestry, neither did Joseph's lineage go directly back to Adam. Joseph's immediate ancestors were mechanics — builders, carpenters, masons, and smiths. Joseph himself was a carpenter and later a contractor. His family belonged to a long and illustrious line of the nobility of the common people, accentuated ever and anon by the appearance of unusual individual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connection with the evolution of religion on Urantia.

122:1.2 (1345.1) Mary, the earth mother of Jesus, was a descendant of a long line of unique ancestors embracing many of the most remarkable women in the racial history of Urantia. Although Mary was an average woman of her day and generation, possessing a fairly normal temperament, she reckoned among her ancestors such well-known women as Annon, Tamar, Ruth, Bathsheba, Ansie, Cloa, Eve, Enta, and Ratta. No Jewish woman of that day had a more illustrious lineage of common progenitors or one extending back to more auspicious beginnings. Mary's ancestry, like Joseph's, was characterized by the predominance of strong but average individuals, relieved now and then by numerous outstanding personalities in the march of civilization and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religion. Racially considered, it is hardly proper to regard Mary as a Jewess. In culture and belief she was a Jew, but in hereditary endowment she

는데, **마리아**의 인종적 유전성은 **요셉**에 비해서 더 평범했다.

미가엘이 중여를 입안하고 있을 무렵에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던 모든 부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광범한 종족 결합과 보통 이상의 우수한 인격 자질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 있게 갖춘 부부였다. **미가엘**의 계획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일반인들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중여를 위한 부부가 되도록 선택했다.

2.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출현함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필생과업은, 사실상 **세례 요한**으로 인해 시작됐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는 **유대인** 제사장 지파(支派)에 속했던 반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속했던 대가족 집단 중에서 더 번창한 지파의 일원이었다. **사가**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가브리엘은, 나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정오에 나타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인, 기원전 8년 6월말이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네 남편 **사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원자의 도래를 염원하는 중에, 나 **가브리엘**은 이 신성한 선생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네가 곧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리러 왔는데, 너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가 자라서 **주** 너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며, 장성한 후에는 네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데, 그 아이가 많은 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네 민족의 혼을 치유하는 자, 온 인류의 영을 해방시키는 자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친척 **마리아**가, 이 약속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나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이 환상은 **엘리사벳**을 몹시 놀라게 했다.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엘리사벳**은 이 체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위엄 있는 방문자의 말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지만, 다음 해 2월초에 **마리아**와 만날 때까지, 남편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계시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아무튼, **엘리사벳**은 남편에게조차 다섯 달 동안 비밀로 간직했다.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가**라는 매우 회의적이었고, 여러 주 동안 모든 체험을 의심했으며,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됐음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자, **가브리엘**이 자기 아내에게 왔던 것을 비로소 반신

was more a composite of Syrian, Hittite, Phoenician, Greek, and Egyptian stocks, her racial inheritance being more general than that of Joseph.

122:1.3 (1345.2) Of all couples living in Palestine at about the time of Michael's projected bestowal, Joseph and Mary possessed the most ideal combination of widespread racial connections and superior average of personality endowments. It was the plan of Michael to appear on earth as an average man, that the common people might understand him and receive him; wherefore Gabriel selected just such persons as Joseph and Mary to become the bestowal parents.

2. GABRIEL APPEARS TO ELIZABETH

122:2.1 (1345.3) Jesus' lifework on Urantia was really begun by John the Baptist. Zacharias, John's father, belonged to the Jewish priesthood, while his mother, Elizabeth, was a member of the more prosperous branch of the same large family group to which Mary the mother of Jesus also belonged. Zacharias and Elizabeth, though they had been married many years, were childless.

122:2.2 (1345.4) It was late in the month of June, 8 B.C., about three months after the marriage of Joseph and Mary, that Gabriel appeared to Elizabeth at noontide one day, just as he later made his presence known to Mary. Said Gabriel:

122:2.3 (1345.5) "While your husband, Zacharias, stands before the altar in Jerusalem, and while the assembled people pray for the coming of a deliverer, I, Gabriel, have come to announce that you will shortly bear a son who shall be the forerunner of this divine teacher, and you shall call your son John. He will grow up dedicated to the Lord your God, and when he has come to full years, he will gladden your heart because he will turn many souls to God, and he will also proclaim the coming of the soul-healer of your people and the spirit-liberator of all mankind. Your kinswoman Mary shall be the mother of this child of promise, and I will also appear to her."

122:2.4 (1345.6) This vision greatly frightened Elizabeth. After Gabriel's departure she turned this experience over in her mind, long pondering the sayings of the majestic visitor, but did not speak of the revelation to anyone save her husband until her subsequent visit with Mary in early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122:2.5 (1345.7) For five months, however, Elizabeth withheld her secret even from her husband. Upon her disclosure of the story of Gabriel's visit, Zacharias was very skeptical and for weeks doubted the entire experience, only consenting halfheartedly to believe in Gabriel's visit to his wife when he could no longer question that she was

반의하는 정도가 됐다. **사가**라는, **엘리사벳**이 장차 어머니가 될 것에 관해 매우 당황했으나, 자신의 나이가 고령이지만 아내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가**라는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 전이 됐을 때에야, 어떤 인상적인 꿈을 꾼 결과로, **엘리사벳**이 운명의 아들, 즉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됐다.

기원전 8년 11월 중순쯤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유다의 성읍** 언덕에 거주하는 **엘리사벳**에게 다녀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셉**을 설득했다. **가브리엘**은 어머니가 될 이 사람들 각자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도 출현할 것임을 알렸었다. 자연히, 그들은 서로 만나서 체험을 비교하고, 자기 아들의 유망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갈망했다. **마리아**는 먼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3주 동안 머물렀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을 본 것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많은 역할을 했고, 그리하여 **마리아**는, 아무 힘없는, 즉 그 영역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갓난아기로 세상에 곧 출현할, 그 운명적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자신이 부름 받았음을, 더 온전히 확신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유다의 성읍**에서 출생했다. **사가**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대로 아들이 생긴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전에 지시 받았던 대로, 정식으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사가**의 조카가 이미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요한의 부모는, 그가 자라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종교 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한**에게 신중하게 감명을 줬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 발은, 그런 암시적인 씨앗이 뿌러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했다. 심지어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가 봉직(奉職)하는 동안 성전에서 자주 발견됐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의 의미심장함에 크게 감동받았다.

3.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림

어느 날 저녁 해 질 무렵 **요셉**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도로 만든 낮은 식탁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마리아**가 평정을 되찾은 뒤에 말했다: “나는, 내 주님이시오 네가 앞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될 그분의 분부로 왔다. **마리아**야, 네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의 임신은

expectant with child. Zacharias was very much perplexed regarding the prospective motherhood of Elizabeth, but he did not doubt the integrity of his wife, notwithstanding his own advanced age. It was not until about six weeks before John's birth that Zacharias, as the result of an impressive dream, became fully convinced that Elizabeth was to become the mother of a son of destiny, one who was to prepare the way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122:2.6 (1346.1) Gabriel appeared to Mary about the middle of November, 8 B.C., while she was at work in her Nazareth home. Later on, after Mary knew without doubt that she was to become a mother, she persuaded Joseph to let her journey to the City of Judah, four miles west of Jerusalem, in the hills, to visit Elizabeth. Gabriel had informed each of these mothers-to-be of his appearance to the other. Naturally they were anxious to get together, compare experiences, and talk over the probable futures of their sons. Mary remained with her distant cousin for three weeks. Elizabeth did much to strengthen Mary's faith in the vision of Gabriel, so that she returned home more fully dedicated to the call to mother the child of destiny whom she was so soon to present to the world as a helpless babe, an average and normal infant of the realm.

122:2.7 (1346.2) John was born in the City of Judah, March 25, 7 B.C. Zacharias and Elizabeth rejoiced greatly in the realization that a son had come to them as Gabriel had promised, and when on the eighth day they presented the child for circumcision, they formally christened him John, as they had been directed aforetime. Already had a nephew of Zacharias departed for Nazareth, carrying the message of Elizabeth to Mary proclaiming that a son had been born to her and that his name was to be John.

122:2.8 (1346.3) From his earliest infancy John was judiciously impressed by his parents with the idea that he was to grow up to become a spiritual leader and religious teacher. And the soil of John's heart was ever responsive to the sowing of such suggestive seeds. Even as a child he was found frequently at the temple during the seasons of his father's service, and he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significance of all that he saw.

3.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122:3.1 (1346.4) One evening about sundown, before Joseph had returned home, Gabriel appeared to Mary by the side of a low stone table and, after she had recovered her composure, said: "I come at the bidding of one who is my Master and whom you shall love and nurture. To you, Mary, I bring glad tidings when I announce that the conception

하늘이 정한 것이고, 기한이 되면 네가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너는 그를 **예수**라 불러야 하고, 그가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늘 나라를 펼칠 것임을 예고한다. 내가 이미 방문했던 네 친척 **엘리사벳**과 **요셉**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엘리사벳** 또한 **요한**이라고 부를 아들을 곧 낳을 것이며, 그는, 네 아들이 위대한 능력과 깊은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야, 내 말을 의심하지 마라. 이 집이 운명의 어린아이가 필사자로서 거주할 곳으로 선택됐기 때문이다. 내 축복이 네게 머물고, **지고자**(至高者)의 능력이 너를 강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온 땅의 **주**(主)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마리아는,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밝히기 전에,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이 방문에 대해 여러 주 동안 은밀히 마음 속으로 숙고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동요했으며, 여러 날 잠을 잘 수 없었다. **요셉**은 처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의심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신성한 사자(使者)의 음성을 정말로 들었고 그의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 거의 믿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 인간의 후손이 어떻게 신성한 운명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혼돈되는 이 관념을 받아들이 수 없었지만, 여러 주 동안 고심한 끝에, 그와 **마리아**는, 도래할 구원자는 신성한 본성을 지녀야 한다는 **유대인**의 개념과 다름에도, 그들 자신이 **메시아**의 부모로 선택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런 중대한 결론에 이르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부모인 **요아킴**과 **한나**를 방문했다. 부모를 위시해서 두 형제와 두 자매는, **예수**의 이 신성한 사명에 대해 심히 회의적인 태도를 늘 보였지만, 물론 이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장차 위대한 선생이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자매인 **살로메**에게 털어놓았다.

마리아에게 했던 **가브리엘**의 예고는 **예수**가 수태된 다음 날 있었고, **마리아**가 약속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전체 체험과 관련해서 일어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4. 요셉의 꿈

요셉은, 자신이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기 전에는,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꿈속에서 밝게

within you is ordained by heaven, and that in due time you will become the mother of a son; you shall call him Joshua, and he shall inaugurate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among men. Speak not of this matter save to Joseph and to Elizabeth, your kinswoman, to whom I have also appeared, and who shall presently also bear a son, whose name shall be John, and who will prepare the way for the message of deliverance which your son shall proclaim to men with great power and deep conviction. And doubt not my word, Mary, for this home has been chosen as the mortal habitat of the child of destiny. My benediction rests upon you, the power of the Most Highs will strengthen you, and the Lord of all the earth shall overshadow you.”

122:3.2 (1346.5) Mary pondered this visitation secretly in her heart for many weeks until of a certainty she knew she was with child, before she dared to disclose these unusual events to her husband. When Joseph heard all about this, although he had great confidence in Mary, he was much troubled and could not sleep for many nights. At first Joseph had doubts about the Gabriel visitation. Then when he became well-nigh persuaded that Mary had really heard the voice and beheld the form of the divine messenger, he was torn in mind as he pondered how such things could be. How could the offspring of human beings be a child of divine destiny? Never could Joseph reconcile these conflicting ideas until, after several weeks of thought, both he and Mar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y had been chosen to become the parents of the Messiah, though it had hardly been the Jewish concept that the expected deliverer was to be of divine nature. Upon arriving at this momentous conclusion, Mary hastened to depart for a visit with Elizabeth.

122:3.3 (1347.1) Upon her return, Mary went to visit her parents, Joachim and Hannah. Her two brothers and two sisters, as well as her parents, were always very skeptical about the divine mission of Jesus, though, of course, at this time they knew nothing of the Gabriel visitation. But Mary did confide to her sister Salome that she thought her son was destined to become a great teacher.

122:3.4 (1347.2)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was made the day following the conception of Jesus and was the only event of supernatural occurrence connected with her entire experience of carrying and bearing the child of promise.

4. JOSEPH'S DREAM

122:4.1 (1347.3) Joseph did not become reconciled to the idea that Mary was to become the mother of an extraordinary child until after he had experienced a very impressive dream. In this

빛나는 천상의 사자{使者}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요셉**아, 나는 저 높은 곳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타났는데, 장차 세상의 위대한 빛이 되실 아들에 대해, 그리고 **마리아**가 그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의 삶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 민족에게 오겠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희가 **하나님** 자녀임을 그가 계시할 것이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과, 태어날 그 아이가 세상에 신성한 사자{使者}가 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전적으로 의심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방문이 이뤄지는 동안,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암시는 없었으며, 심지어 오래 대망{待望}하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전혀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세상의 구원자**였다. 그의 사명은, 어떤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종족과 민족을 향한 것이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다윗** 혈통에 더 가까웠다. **요셉**이 **로마** 정부의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요셉**의 6대조 부계{父系} 조상이 고아가 되어,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던 **사독**에게 입양됐기 때문이었으며; 그로 인해 **요셉** 역시 “**다윗**의 가문{家門}”으로 간주됐다.

구약 성경에서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들 대부분은, **예수**가 이 땅에 거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에게 맞도록 정돈됐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수세기 동안 구원자의 도래{到來}를 선포해 왔고, 이런 약속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다윗 왕**의 권좌를 계승할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가 도래할 것이며, **모세**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틴**에 **유대인**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외국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외에도, **히브리** 성서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많은 상징적 구절이, 후대에 이르러 **예수**의 생애 사명에 잘못 적용됐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이, 마치 **주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어떤 사건과 일치하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왜곡됐다. 자신과 **다윗 왕**가의 모든 관련성을 **예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한 번 있었다. 심지어 “한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문장마저,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 중에서 많은 부분이, **미가엘**의 이 세상 생애 이후에 작성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족보에는 **주님**의 실제 조상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짜가 아니며,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기에 **예수**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은, 고대의 예언 기사들 전문가, 그들의 **주시**며 **스승**이신 **그분**의 생애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

dream a brilliant celestial messenger appeared to him and, among other things, said: “Joseph, I appear by command of Him who now reigns on high, and I am directed to instruct you concerning the son whom Mary shall bear, and who shall become a great light in the world. In him will be life, and his life shall become the light of mankind. He shall first come to his own people, but they will hardly receive him; but to as many as shall receive him to them will he reveal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After this experience Joseph never again wholly doubted Mary’s story of Gabriel’s visit and of the promise that the unborn child was to become a divine messenger to the world.

122-4.2 (1347.4) In all these visitations nothing was said about the house of David. Nothing was ever intimated about Jesus’ becoming a “deliverer of the Jews,” not even that he was to be the long-expected Messiah. Jesus was not such a Messiah as the Jews had anticipated, but he was the world’s deliverer. His mission was to all races and peoples, not to any one group.

122-4.3 (1347.5) Joseph was not of the line of King David. Mary had more of the Davidic ancestry than Joseph. True, Joseph did go to the City of David, Bethlehem, to be registered for the Roman census, but that was because, six generations previously, Joseph’s paternal ancestor of that generation, being an orphan, was adopted by one Zadoc, who was a direct descendant of David; hence was Joseph also accounted as of the “house of David.”

122-4.4 (1347.6) Most of the so-called Messianic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were made to apply to Jesus long after his life had been lived on earth. For centuries the Hebrew prophets had proclaimed the coming of a deliverer, and these promises had been construed by successive generations as referring to a new Jewish ruler who would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by the reputed miraculous methods of Moses, proceed to establish the Jews in Palestine as a powerful nation, free from all foreign domination. Again, many figurative passages found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were subsequently misapplied to the life mission of Jesus. Many Old Testament sayings were so distorted as to appear to fit some episode of the Master’s earth life. Jesus himself onetime publicly denied any connection with the royal house of David. Even the passage, “a maiden shall bear a son,” was made to read, “a virgin shall bear a son.” This was also true of the many genealogies of both Joseph and Mary which were constructed subsequent to Michael’s career on earth. Many of these lineages contain much of the Master’s ancestry, but on the whole they are not genuine and may not be depended upon as factual. The early followers of Jesus all too often

게 하려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다.

succumbed to the temptation to make all the olden prophetic utterances appear to find fulfillment in the life of their Lord and Master.

5. 예수의 이 세상 부모

요셉은 온화한 성품의 남자였고 지극히 양심적이었으며, 자기 민족의 종교 관례와 풍습에 모든 면에서 충실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생각이 깊었다. **유대** 민족의 비참한 처지가 **요셉**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젊은 시절에는 그가 여덟 명의 남매 중에서 매우 쾌활한 편이었었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는(곧 **예수**가 어렸을 적에는) 영적으로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런 기질적 정후는, 그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목수의 직급으로부터 유망한 하청업자의 역할로 향상됨으로써 그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후에, 훨씬 나아졌다.

마리아의 기질은 남편과는 정 반대였다. 늘 쾌활했고, 의기소침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항상 밝은 성격을 지녔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수시로 표현하곤 했고, **요셉**이 갑작스럽게 죽기 전에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충격에서 거의 회복되자마자, 만아들의 범상치 않은 생애로 말미암아 염려와 의문이 **마리아**에게 밀어닥쳤으며, 아들의 생애는, 놀라워하는 **마리아**의 눈앞에서 매우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범치 않은 이 모든 체험 내내,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만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형제 및 자매와의 관계에서, **마리아**는 침착하고 용감하며 상당히 현명했다.

예수는, 남다른 부드러움, 그리고 인간 본성에 공감하는 놀라운 이해심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재능, 그리고 의분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른으로서 살던 환경에 대해 보인 감정적 반응에서, **예수**는 한때 아버지처럼 생각이 많고 신앙적이며 가끔씩은 슬픈 듯 보이는 특징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낙천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향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여 성인으로서 생활하며 중대한 걸음을 감자기 내디딜 때, **마리아**의 기질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께서 부모 두 사람의 특징이 혼합된 면을 보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기질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예수는, **유대** 예식절차의 용법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히브리** 성서에 대한 보기 드문 식견(識見)을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마리아**로부터는, 종교생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과, 개인의 영

5. JESUS' EARTH PARENTS

122:5.1 (1348.1) Joseph was a mild-mannered man, extremely conscientious, and in every way faithful to the religious conventions and practices of his people. He talked little but thought much. The sorry plight of the Jewish people caused Joseph much sadness. As a youth, among his eight brothers and sisters, he had been more cheerful, but in the earlier years of married life (during Jesus' childhood) he was subject to periods of mild spiritual discouragement. These temperamental manifestations were greatly improved just before his untimely death and after the economic condition of his family had been enhanced by his advancement from the rank of carpenter to the role of a prosperous contractor.

122:5.2 (1348.2) Mary's temperament was quite opposite to that of her husband. She was usually cheerful, was very rarely downcast, and possessed an ever-sunny disposition. Mary indulged in free and frequent expression of her emotional feelings and was never observed to be sorrowful until after the sudden death of Joseph. And she had hardly recovered from this shock when she had thrust upon her the anxieties and questionings aroused by the extraordinary career of her eldest son, which was so rapidly unfolding before her astonished gaze. But throughout all this unusual experience Mary was composed, courageous, and fairly wise in her relationship with her strange and little-understood first-born son and his surviving brothers and sisters.

122:5.3 (1348.3) Jesus derived much of his unusual gentleness and marvelous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from his father; he inherited his gift as a great teacher and his tremendous capacity for righteous indignation from his mother. In emotional reactions to his adult-life environment, Jesus was at one time like his father, meditative and worshipful, sometimes characterized by apparent sadness; but more often he drove forward in the manner of his mother's optimistic and determined disposition. All in all, Mary's temperament tended to dominate the career of the divine Son as he grew up and swung into the momentous strides of his adult life. In some particulars Jesus was a blending of his parents' traits; in other respects he exhibited the traits of one in contrast with those of the other.

122:5.4 (1348.4) From Joseph Jesus secured his strict training in the usages of the Jewish ceremonies and his unusual acquaintance with the Hebrew scriptures; from Mary he derived a broader viewpoint of religious life and a more

적 자유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인 개념을 얻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집안은 당시에 교육을 잘 받은 편에 속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시대 배경과 생활수준에 비춰 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다. **요셉**은 사색가였으며, **마리아**는 계획가, 즉 적응력이 뛰어나고 즉시 이행하는 실천가였다. **요셉**은 검은 눈과 검은머리를 지녔고; **마리아**는 갈색 눈과 금발에 가까운 유형이었다.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만자들의 신성한 사명을 확고하게 믿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다른 자식과 친구 및 친척들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마리아**의 최종적인 태도는, 그 아이가 잉태된 직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항상 안정을 되찾았다.

마리아는 숙달된 직조기술자였고, 그 당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 기술 중에서 평범한 솜씨 이상이었으며; 훌륭한 살림꾼이었고 뛰어난 가정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훌륭한 선생이었고, 자녀들이 그 당시의 지식에 해박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요셉은 젊었을 때 **마리아**의 아버지 집 증축공사에 고용됐었는데, 점심시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예수**의 부모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부부로서 구애(求愛)관계가 실제로 시작됐다.

요셉이 스물한 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정상적인 정혼(定婚) 지속기간이 끝날 때 치러졌다. 그 직후에 그들은 **나사렛**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으며, 그 집은 **요셉**이 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것이었다. 그 집은, 사방에 펼쳐진 시골 풍경이 매우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구릉지(丘陵地) 밑에 위치했다. 곧 부모가 될 이 두 젊은 부부는, 집을 떠나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 한 우주의 이 중대한 사건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약속의 아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요셉 쪽 가족 대부분은 **예수**의 교훈을 믿는 신자가 됐지만, **마리아** 쪽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를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요셉**은 예정돼있는 **메시아**에 대해 영적인 개념에 더 치우쳐 있었지만, **마리아**와 그 가족들, 특히 **마리아**의 아버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단지 현세적인 구원자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리아**의 선조들은 그 당시 최근에 있었던 **마카비** 활동에 깊이 관여해 왔었다.

liberal concept of personal spiritual freedom.

122:5.5 (1349.1) The families of both Joseph and Mary were well educated for their time. Joseph and Mary were educated far above the average for their day and station in life. He was a thinker; she was a planner, expert in adaptation and practical in immediate execution. Joseph was a black-eyed brunet; Mary, a brown-eyed well-nigh blond type.

122:5.6 (1349.2) Had Joseph lived, he undoubtedly would have become a firm believer in the divine mission of his eldest son. Mary alternated between believing and doubting, being greatly influenced by the position taken by her other children and by her friends and relatives, but always was she steadied in her final attitude by the memory of Gabriel's appearance to her immediately after the child was conceived.

122:5.7 (1349.3) Mary was an expert weaver and more than averagely skilled in most of the household arts of that day; she was a good housekeeper and a superior homemaker. Both Joseph and Mary were good teachers, and they saw to it that their children were well versed in the learning of that day.

122:5.8 (1349.4) When Joseph was a young man, he was employed by Mary's father in the work of building an addition to his house, and it was when Mary brought Joseph a cup of water, during a noontime meal, that the courtship of the pair who were destined to become the parents of Jesus really began.

122:5.9 (1349.5) Joseph and Mary were married, in accordance with Jewish custom, at Mary's home in the environs of Nazareth when Joseph was twenty-one years old. This marriage concluded a normal courtship of almost two years' duration. Shortly thereafter they moved into their new home in Nazareth, which had been built by Joseph with the assistance of two of his brothers. The house was located near the foot of the near-by elevated land which so charmingly overlooke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In this home, especially prepared, these young and expectant parents had thought to welcome the child of promise, little realizing that this momentous event of a universe was to transpire while they would be absent from home in Bethlehem of Judea.

122:5.10 (1349.6) The larger part of Joseph's family became believers in the teachings of Jesus, but very few of Mary's people ever believed in him until after he departed from this world. Joseph leaned more toward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expected Messiah, but Mary and her family, especially her father, held to the idea of the Messiah as a temporal deliverer and political ruler. Mary's ancestors had been prominently identified with the Maccabean activities of the then but recent times.

요셉은 **유대교** 관점들 중에서 **동방**의 관점, 즉 **바빌로니아** 관점을 열정적으로 지지했으며, **마리아**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해석할 때, 더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서방**, 즉 **헬라**파 해석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122:5.11 (1349.7) Joseph held vigorously to the Eastern, or Babylonian, views of the Jewish religion; Mary leaned strongly toward the more liberal and broader Western, or Helleni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prophets.

6. 나사렛 고향집

예수의 집은, **나사렛** 북쪽 지역의 높은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고, 성읍의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거주했으며, 이로 인해 그가 나중에 시골길 산책을 수시로 즐기거나, 근처에 있는 고원지대 꼭대기에 오르는 것도 훨씬 쉽게 했는데, 이곳은 동쪽으로 **다불산** 줄기, 그리고 비슷한 높이의 **나인** 언덕을 제외하고는, 남부 **갈릴리**의 모든 언덕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 구릉에서 약간 남동쪽에 위치했고, 이 언덕의 기슭과 **나사렛**에서 **가나** 쪽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했다. **예수**께서는 언덕을 오르는 것 외에도, **세포리**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향해 북동쪽 방향으로 자리 잡은, 언덕 기슭 주변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서 산책하기를 즐겼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방이 하나 있는 석조 건물이었고, 축사{畜舍}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가구로는, 낮은 식탁, 질그릇과 돌로 된 접시와 냄비들, 베틀, 등잔, 몇 개의 작은 의자, 그리고 돌바닥에 깔고 잘 수 있는 돛자리들이 있었다. 축사가 가까이 있는 뒷마당에는, 곡식을 가는데 필요한 맷돌과 화덕을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었다. 이런 맷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곡물을 집어넣어야 했으므로, 두 사람이 필요했다. 어린 시절에 **예수**는, 어머니가 맷돌을 돌리는 동안 곡물을 집어넣는 일을 자주 도왔다.

후년에 가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온 식구는 더 넓게 만든 돌 식탁 주위에 함께 좁혀 앉아, 음식이 들어 있는 접시나 냄비에서 각자의 음식을 덜어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겨울 동안의 저녁식사 때에는, 올리브기름으로 채워진 작고 납작한 진흙 등잔으로 식탁을 밝혔다. **마르다**가 태어난 후에, **요셉**은 이 집에 큰 방을 하나 덧붙여지었고, 낮에는 목공소로 쓰고 밤에는 침실로 사용했다.

122:6.1 (1349.8) The home of Jesus was not far from the high hill in the northerly part of Nazareth, some distance from the village spring, which was in the eastern section of the town. Jesus' family dwelt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this made it all the easier for him subsequently to enjoy frequent strolls in the country and to make trips up to the top of this near-by highland, the highest of all the hills of southern Galilee save the Mount Tabor range to the east and the hill of Nain, which was about the same height. Their home was located a little to the south and east of the southern promontory of this hill and about midway between the base of this elevation and the road leading out of Nazareth toward Cana. Aside from climbing the hill, Jesus' favorite stroll was to follow a narrow trail winding about the base of the hill in a northeasterly direction to a point where it joined the road to Sepphoris.

122:6.2 (1350.1) The home of Joseph and Mary was a one-room stone structure with a flat roof and an adjoining building for housing the animals. The furniture consisted of a low stone table, earthenware and stone dishes and pots, a loom, a lampstand, several small stools, and mats for sleeping on the stone floor. In the back yard, near the animal annex, was the shelter which covered the oven and the mill for grinding grain. It required two persons to operate this type of mill, one to grind and another to feed the grain. As a small boy Jesus often fed grain to this mill while his mother turned the grinder.

122:6.3 (1350.2) In later years, as the family grew in size, they would all squat about the enlarged stone table to enjoy their meals, helping themselves from a common dish, or pot, of food. During the winter, at the evening meal the table would be lighted by a small, flat clay lamp, which was filled with olive oil. After the birth of Martha, Joseph built an addition to this house, a large room, which was used as a carpenter shop during the day and as a sleeping room at night.

7. 베들레헬 여행

기원전 8년 3월에(곧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그 달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인구조사를 받도록 명령했는데, 인구조사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7. THE TRIP TO BETHLEHEM

122:7.1 (1350.3) In the month of March, 8 B.C. (the month Joseph and Mary were married), Caesar Augustus decreed that all inhabitants of the Roman Empire should be numbered, that a

것이였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계수(計數)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선입견으로 항상 반대해 왔으며, 이것은 **유대지방**의 **왕 헤롯**이 국내의 심각한 어려운 여건들과 관련하여, **유대**에서 이 인구조사 시행이 1년간 연기되도록 만들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기원전 8년에 실시됐지만, 유독 **헤롯**이 지배하는 **팔레스틴** 왕국만 예외였는데, 거기서는 1년 후인 기원전 7년에 실시됐다.

등록하기 위해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곧 가족 전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모험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마리아**가 그와 동행할 것을 고집했다. **마리아**는 **요셉**이 집을 비운 동안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게다가 **베들레헴**이 **유다의 성읍**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친척 **엘리사벳**을 기쁘게 방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마리아**가 따라오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지만, 소용없었으며; 3일 내지 4일의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두 사람의 몫을 만들어서 자기도 그 여행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출발하기 전에, **마리아**의 동행을 **요셉**이 수락했고, 그들은 새벽 무렵에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을 나섰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타고 갈 수 있는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 물건들과 함께 짐승 위에 타고, **요셉**은 걸어서 그 짐승을 끌고 갔다. **요셉**은 최근에 아버지가 몸을 못 쓰게 되어 부모도 부양해야 했으므로,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일이 크게 부담스러웠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이른 아침에, 초라한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다.

여행하던 첫 날, 그들은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고, 거기서 **요단강**가에 야영지를 마련하고 밤을 보내면서,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요셉**은 영적 선생의 개념에 집착했고, **마리아**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유대**의 **메시아** 관념을 고집했다.

8월 19일 밝은 이른 아침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사르타바산** 기슭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여행을 계속해서 그날 밤에 **여리고**에 도착했고, 그 성읍(城邑) 변두리 도로변에 자리잡은 여인숙에 묵었다. **나사렛**에서 온 이 여행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로마** 통치의 억압, **헤롯**, 인구조사 등록, 그리고 **유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해 많이 토론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0일 아침 일찍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정오가 되기 전에 **예**

census should be made which could be used for effecting better taxation. The Jews had always been greatly prejudiced against any attempt to “number the people,” and this, in connection with the serious domestic difficulties of Herod, King of Judea, had conspired to cause the postponement of the taking of this census in the Jewish kingdom for one year. Throughout all the Roman Empire this census was registered in the year 8 B.C., except in the Palestinian kingdom of Herod, where it was taken in 7 B.C., one year later.

122:7.2 (1350.4) It was not necessary that Mary should go to Bethlehem for enrollment — Joseph was authorized to register for his family — but Mary, being an adventurous and aggressive person, insisted on accompanying him. She feared being left alone lest the child be born while Joseph was away, and again, Bethlehem being not far from the City of Judah, Mary foresaw a possible pleasurable visit with her kinswoman Elizabeth.

122:7.3 (1350.5) Joseph virtually forbade Mary to accompany him, but it was of no avail; when the food was packed for the trip of three or four days, she prepared double rations and made ready for the journey. But before they actually set forth, Joseph was reconciled to Mary's going along, and they cheerfully departed from Nazareth at the break of day.

122:7.4 (1350.6) Joseph and Mary were poor, and since they had only one beast of burden, Mary, being large with child, rode on the animal with the provisions while Joseph walked, leading the beast. The building and furnishing of a home had been a great drain on Joseph since he had also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his parents, as his father had been recently disabled. And so this Jewish couple went forth from their humble home early on the morning of August 18, 7 B.C., on their journey to Bethlehem.

122:7.5 (1351.1) Their first day of travel carried them around the foothills of Mount Gilboa, where they camped for the night by the river Jordan and engaged in many speculations as to what sort of a son would be born to them, Joseph adhering to the concept of a spiritual teacher and Mary holding to the idea of a Jewish Messiah, a deliverer of the Hebrew nation.

122:7.6 (1351.2) Bright and early the morning of August 19, Joseph and Mary were again on their way. They partook of their noontide meal at the foot of Mount Sartaba, overlooking the Jordan valley, and journeyed on, making Jericho for the night, where they stopped at an inn on the highway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Following the evening meal and after much discussion concerning the oppressiveness of Roman rule, Herod, the census enrollment, and the comparative influence of Jerusalem and Alexandria as centers of Jewish

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목적지인 **베들레헴**에는 오후 중반에 도착했다.

여인숙이 손님들로 가득 찼으므로, **요셉**은 먼 친척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방은 이미 만원이었다. 그 여인숙 안마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여인숙 바로 아래쪽에, 바위를 깎아내고 대상(隊商)들을 위해 지어놓은 마구간들을, 숙박객을 위해서 짐승을 치우고 깨끗이 청소해 놓았음을 알았다. **요셉**은 당나귀를 여인숙 안마당에 매놓은 후, 옷 보파리와 식량을 어깨에 메고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향해 **마리아**와 함께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숙소는 전에 곡물창고로 사용됐던 곳이었고, 앞에는 마구간과 구유들이 있었다. 천막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이런 안락한 장소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요셉은 바로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매우 지쳐있었으며;상당히 고통스러워진 **마리아**는, **요셉**이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요셉**은 아내의 말대로 했다.

8. 예수 의 탄생

마리아가 밤새도록 몸이 불편했으므로, 둘 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에 산통(産痛)이 심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다른 동료 여자 여행객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리아**는 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났으며, **마리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져온 옷으로 그를 싸서, 가까이에 있는 구유에 눕혔다.

그날 이전이나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된 그 아기가 태어났으며;팔 일째 되는 날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예슈아**(곧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예수께서 태어난 다음 날, **요셉**은 등록을 마쳤다. 그는 이틀 전에 **여리고**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는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부유한 친구에게 **요셉**을 데려갔으며, 그 친구는, **나사렛**에서 온 그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바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여인숙으로 방을 옮겼고, **요셉**의 먼 친척 집에 숙소를 얻기 전까지, 거의 3주간 거기서 지냈다.

예수께서 태어난 후 둘째 날에,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갈을 **엘리사벳**에게 보냈고, **예**

learning and culture, the Nazareth travelers retired for the night's rest. Early in the morning of August 20 they resumed their journey, reaching Jerusalem before noon, visiting the temple, and going on to their destination, arriving at Bethlehem in midafternoon.

122:7.7 (1351.3) The inn was overcrowded, and Joseph accordingly sought lodgings with distant relatives, but every room in Bethlehem was filled to overflowing. On returning to the courtyard of the inn, he was informed that the caravan stables, hewn out of the side of the rock and situated just below the inn, had been cleared of animals and cleaned up for the reception of lodgers. Leaving the donkey in the courtyard, Joseph shouldered their bags of clothing and provisions and with Mary descended the stone steps to their lodgings below. They found themselves located in what had been a grain storage room to the front of the stalls and mangers. Tent curtains had been hung, and they counted themselves fortunate to have such comfortable quarters.

122:7.8 (1351.4) Joseph had thought to go out at once and enroll, but Mary was weary; she was considerably distressed and besought him to remain by her side, which he did.

8. THE BIRTH OF JESUS

122:8.1 (1351.5) All that night Mary was restless so that neither of them slept much. By the break of day the pangs of childbirth were well in evidence, and at noon, August 21, 7 B.C., with the help and kind ministrations of women fellow travelers, Mary was delivered of a male child. Jesus of Nazareth was born into the world, was wrapped in the clothes which Mary had brought along for such a possible contingency, and laid in a near-by manger.

122:8.2 (1351.6) In just the same manner as all babies before that day and since have come into the world, the promised child was born; and on the eighth day, according to the Jewish practice, he was circumcised and formally named Joshua (Jesus).

122:8.3 (1351.7) The next day after the birth of Jesus, Joseph made his enrollment. Meeting a man they had talked with two nights previously at Jericho, Joseph was taken by him to a well-to-do friend who had a room at the inn, and who said he would gladly exchange quarters with the Nazareth couple. That afternoon they moved up to the inn, where they lived for almost three weeks until they found lodgings in the home of a distant relative of Joseph.

122:8.4 (1351.8) The second day after the birth of Jesus, Mary sent word to Elizabeth that her child

루살렘에 와서 **사가라**와 함께 그들이 당면한 모든 일에 대해 상의하도록 **요셉**을 초청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라**와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예수**께서 진실로 **유대인**의 구원자, 즉 **메시아**이며, 아들 **요한**은 조력자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할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자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요셉**을 설득시키기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1년 이상 머물렀고, **요셉**은 그동안 목수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예수께서 탄생하던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스라빔이 그들의 지휘자들 아래 함께 모여,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영광의 찬미를 불렀지만, 인간의 귀에는 이 찬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가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司祭)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목동은 물론 다른 어떤 뿔사 피조물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제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꿔다는 이야기를, 그들의 나라에 있는 기이한 종교 교사로부터 얼마 전에 들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선생들은 그 “생명의 빛”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려던 여러 주간의 수고가 허사로 끝난 후에, 그들이 막 **우르**로 돌아가려 할 때, **사가라**를 만나게 됐고, 그는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수**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털어냈으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거기서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아기의 이 세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전해 줬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아기는 태어난 지 3주 정도 됐었다.

이 현자(賢者)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이렇게 유래했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적 사실이다. 선의(善意)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 신자들은, 이런 특수하지만 또한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에 기초해서,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구유로 안내되어 거기서 그 아기를 발견해 경배를 드린 찬양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대한, 매력적인 전설을 만들어 냈다. **동양적**이거나 거의 **동양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술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며,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 영웅의 생애에 관해서 아름다운 신화를 계속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 지식이 구전(口傳)으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had come and received word in return inviting Joseph up to Jerusalem to talk over all their affairs with Zacharias. The following week Joseph went to Jerusalem to confer with Zacharias. Both Zacharias and Elizabeth had become possessed with the sincere conviction that Jesus was indeed to become the Jewish deliverer, the Messiah, and that their son John was to be his chief of aides, his right-hand man of destiny. And since Mary held these same ideas, it was not difficult to prevail upon Joseph to remain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so that Jesus might grow up to become the successor of David on the throne of all Israel. Accordingly, they remained in Bethlehem more than a year, Joseph meantime working some at his carpenter's trade.

122:8.5 (1352.1) At the noontide birth of Jesus the seraphim of Urantia, assembled under their directors, did sing anthems of glory over the Bethlehem manger, but these utterances of praise were not heard by human ears. No shepherds nor any other mortal creatures came to pay homage to the babe of Bethlehem until the day of the arrival of certain priests from Ur, who were sent down from Jerusalem by Zacharias.

122:8.6 (1352.2) These priests from Mesopotamia had been told sometime before by a strange religious teacher of their country that he had had a dream in which he was informed that “the light of life” was about to appear on earth as a babe and among the Jews. And thither went these three teachers looking for this “light of life.” After many weeks of futile search in Jerusalem, they were about to return to Ur when Zacharias met them and disclosed his belief that Jesus was the object of their quest and sent them on to Bethlehem, where they found the babe and left their gifts with Mary, his earth mother. The babe was almost three weeks old at the time of their visit.

122:8.7 (1352.3) These wise men saw no star to guide them to Bethlehem. The beautiful legend of the star of Bethlehem originated in this way: Jesus was born August 21 at noon, 7 B.C. On May 29, 7 B.C., there occurred an extraordinary conjunction of Jupiter and Saturn in the constellation of Pisces. And it is a remarkable astronomic fact that similar conjunctions occurred on September 29 and December 5 of the same year. Upon the basis of these extraordinary but wholly natural events the well-meaning zealots of the succeeding generation constructed the appealing legend of the star of Bethlehem and the adoring Magi led thereby to the manger, where they beheld and worshiped the newborn babe. Oriental and near-Oriental minds delight in fairy stories, and they are continually spinning such beautiful myths about the lives of their religious leaders and political heroes. In the absence of printing, when most human knowledge was passed by word of mouth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t was very easy for myths

사실로 인정되기가 매우 쉬웠다.

to become traditions and for traditions eventually to become accepted as facts.

9. 성전 예식에 참여함

모세는, 모든 첫_태생 아들은 **주**{主}께 속했다고 **유대인**에게 가르쳤으며, 이방인 국가들 중에서 관습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그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대신, 정식으로 인가된 어느 제사장에게든지 그의 부모가 다섯 세겔을 바침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아기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성전에 직접 나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당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서) 정화{淨化}를 받도록 하는 **모세**의 율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그에 대한 속전{贖錢}을 바치기 위하여, 그리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추정되는 **마리아**의 부정{不淨}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절차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직접 올라갔다.

성전 뜰에는 비범한 두 인물, 즉 노래 부르는 **시므온**과 여자 시인{詩人} **안나**가 항상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므온**은 **유대지방** 사람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서로에게 동무가 됐고, 둘 다 제사장 **사가랴**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가 **요한**과 **예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줬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해 왔고 또한 **사가랴**를 신뢰했으므로, **예수**가 바로 **유대** 민족이 기대해 온 구원자라고 믿게 됐다.

사가랴는,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기로 한 날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함으로써, 여러 명의 첫_태생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예수**인지를 가리켜 주기로, **시므온** 및 **안나**와 사전에 협의했다.

이때를 위하여 **안나**가 지은 시를 **시므온**이 노래로 불렀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위시해서 성전 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을 크게 놀라게 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첫_태생 아들의 속죄에 대한 찬미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복이 있으리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음이니;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9.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122:9.1 (1352.4) Moses had taught the Jews that every first-born son belonged to the Lord, and that, in lieu of his sacrifice as was the custom among the heathen nations, such a son might live provided his parents would redeem him by the payment of five shekels to any authorized priest. There was also a Mosaic ordinance which directed that a mother, after the passing of a certain period of time, should present herself (or have someone make the proper sacrifice for her) at the temple for purification. It was customary to perform both of these ceremonie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at Jerusalem in person to present Jesus to the priests and effect his redemption and also to make the proper sacrifice to insure Mary's ceremonial purification from the alleged uncleanness of childbirth.

122:9.2 (1353.1) There lingered constantly about the courts of the temple two remarkable characters, Simeon a singer and Anna a poetess. Simeon was a Judean, but Anna was a Galilean. This couple were frequently in each other's company, and both were intimates of the priest Zacharias, who had confided the secret of John and Jesus to them. Both Simeon and Anna longed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ir confidence in Zacharias led them to believe that Jesus was the expected deliverer of the Jewish people.

122:9.3 (1353.2) Zacharias knew the day Joseph and Mary were expected to appear at the temple with Jesus, and he had prearranged with Simeon and Anna to indicate, by the salute of his upraised hand, which one in the procession of first-born children was Jesus.

122:9.4 (1353.3) For this occasion Anna had written a poem which Simeon proceeded to sing, much to the astonishment of Joseph, Mary, and all who were assembled in the temple courts. And this was their hymn of the redemption of the first-born son:

122:9.5 (1353.4)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122:9.6 (1353.5) For he has visited us and wrought redemption for his people;

122:9.7 (1353.6)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all of us

122:9.8 (1353.7)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122:9.9 (1353.8) Even as he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

곧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거룩함과 공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다, 너 약속의 아이여, 네가 **지고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네가 **주** 앞에 가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긍휼을 기뻐할 것은, 돕는 해가 위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것이 비춤이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이로다.

그리고 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당신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혼동되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늙은 여자 시인 **안나**의 작별 인사 때문에 매우 불안했고, **요셉**은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예수**를 공표 하려는 그들의 이 미숙 {未熟}한 노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22:9.10 (1353.9)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122:9.11 (1353.10) To show mercy to our fathers, and remember his holy covenant —

122:9.12 (1353.11) The oath which he swore to Abraham our father,

122:9.13 (1353.12) To grant us that we, being delivered out of the hand of our enemies,

122:9.14 (1353.13) Should serve him without fear,

122:9.15 (1353.14)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122:9.16 (1353.15) Yes, and you, child of promise, sha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122:9.17 (1353.16) For you shall go before the face of the Lord to establish his kingdom;

122:9.18 (1353.17) To give knowledge of salvation to his people

122:9.19 (1353.18) In the remission of their sins.

122:9.20 (1353.19) Rejoice in the tender mercy of our God because the dayspring from on high has now visited us

122:9.21 (1353.20)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122:9.22 (1353.21) To guide our feet into ways of peace.

122:9.23 (1353.22) And now let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O Lord, according to your word,

122:9.24 (1353.23)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122:9.25 (1353.24) Which you have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s;

122:9.26 (1353.25) A light for even the unveiling of the gentiles

122:9.27 (1353.26)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122:9.28 (1353.27) On the way back to Bethlehem, Joseph and Mary were silent — confused and overawed. Mary was much disturbed by the farewell salutation of Anna, the aged poetess, and Joseph was not in harmony with this premature effort to make Jesus out to be the expected Messiah of the Jewish people.

10. 헤롯의 행동

그러나 **헤롯**의 정탐꾼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우르**의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자, **헤롯**은 그 **갈대아인**을 자기 앞에 출두시켰다. 그는 이 현자{賢者}들에게, 새로운 “**유**

10. HEROD ACTS

122:10.1 (1353.28) But the watchers for Herod were not inactive. When they reported to him the visit of the priests of Ur to Bethlehem, Herod summoned these Chaldeans to appear before him. He

대인의 왕”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만족시켜주지 않았는데, 인구조사에 응하러 남편을 따라 온 한 여자가 **베들레헬**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헤롯**은, 그의 나라는 세속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보내면서, **헤롯**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현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가 이 일에 대해 마음 속으로 숙고하고 있을 때, 그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성전에서 최근에 생긴 일에 대해 보고했으며, **예수**의 속전예식(贖錢禮式)에서 **시므온**이 노래한 가사 가운데 일부의 사본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하기에 실패했으며, **헤롯**은 그 부부가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알아 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 크게 화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사렛**에서 온 그 가족을 **헤롯**이 쫓고 있음을 알게 되자, **베들레헬**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기 **예수**를 **요셉**의 친척들 집으로 몰래 옮겼다.

요셉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두려웠으며, 따라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방 바닥났다. **요셉**은, 성전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도, **모세**가 가난한 사람에 속한 어머니들의 정결 제물로 지정해 준대로, 어린 비둘기 두 마리만 바쳤을 정도로 가난했다.

1년이 넘는 후까지도 **헤롯**의 정탐꾼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아기가 여전히 **베들레헬**에 숨어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헤롯**은, **베들레헬**의 모든 집마다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두 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헤롯**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이 아기를 없애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하여 **유대지방 베들레헬**에서는, 하루 동안에 열여섯 명의 남자 아기가 살해됐다. 그러나 음모와 살인은, 심지어 **헤롯** 자신의 직계 가족 내에서도, 그의 궁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 아기들의 집단 살해는, **예수**가 겨우 한 살 조금 넘었던 기원전 6년 10월 중순에 일어났다. 그러나 **헤롯**의 측근 중에도 도래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헬**에서 아기들을 살해할 계획을 **사가라**에게 알렸고, 그는 바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으며, 살해 사건이 있던 전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헬**을 떠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만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여행했다. 그들은 **사가라**가 마련해준 돈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으며, **마리아**와 **예수**가 **요셉**의 한 부유한 친척 집에 머무는 동안, **요셉**은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했다. 그들은 꼬박 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베들레헬**으로 돌아오지 않았

inquired diligently of these wise men about the new “king of the Jews,” but they gave him little satisfaction, explaining that the babe had been born of a woman who had come down to Bethlehem with her husband for the census enrollment. Herod, not being satisfied with this answer, sent them forth with a purse and directed that they should find the child so that he too might come and worship him, since they had declared that his kingdom was to be spiritual, not temporal. But when the wise men did not return, Herod grew suspicious. As he turned these things over in his mind, his informers returned and made full report of the recent occurrences in the temple, bringing him a copy of parts of the Simeon song which had been sung at the redemption ceremonies of Jesus. But they had failed to follow Joseph and Mary, and Herod was very angry with them when they could not tell him whither the pair had taken the babe. He then dispatched searchers to locate Joseph and Mary. Knowing Herod pursued the Nazareth family, Zacharias and Elizabeth remained away from Bethlehem. The boy baby was secreted with Joseph’s relatives.

122-10.2 (1354.1) Joseph was afraid to seek work, and their small savings were rapidly disappearing. Even at the time of the purification ceremonies at the temple, Joseph deemed himself sufficiently poor to warrant his offering for Mary two young pigeons as Moses had directed for the purification of mothers among the poor.

122-10.3 (1354.2) When, after more than a year of searching, Herod’s spies had not located Jesus, and because of the suspicion that the babe was still concealed in Bethlehem, he prepared an order directing that a systematic search be made of every house in Bethlehem, and that all boy babies under two years of age should be killed. In this manner Herod hoped to make sure that this child who was to become “king of the Jews” would be destroyed. And thus perished in one day sixteen boy babies in Bethlehem of Judea. But intrigue and murder, even in his own immediate family, were common occurrences at the court of Herod.

122-10.4 (1354.3) The massacre of these infants took place about the middle of October, 6 B.C., when Jesus was a little over one year of age. But there were believers in the coming Messiah even among Herod’s court attachés, and one of these, learning of the order to slaughter the Bethlehem boy babies, communicated with Zacharias, who in turn dispatched a messenger to Joseph; and the night before the massacre Joseph and Mary departed from Bethlehem with the babe for Alexandria in Egypt. In order to avoid attracting attention, they journeyed alone to Egypt with Jesus. They went to Alexandria on funds provided by Zacharias, and there Joseph worked at his trade while Mary and Jesus lodged with well-to-do relatives of Joseph’s family. They sojourned in Alexandria two full years,

다.

not returning to Bethlehem until after the death of Herod.

제123편. 예수 유년기 초기

⇨ 122

유랜시아 책

12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3편
예수의 유년기 초기

섹션

소개

1. 나사렛으로 돌아옴
2. 다섯 살 되던 해 (기원전 2년)
3. 여섯 살 되던 해의 사건들 (기원전 1년)
4. 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년)
5. 나사렛에서 학교생활
6. 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년)

PAPER 123

THE EARLY CHILDHOOD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Back in Nazareth
2. The Fifth Year (2 B.C.)
3. Events of the Sixth Year (1 B.C.)
4. The Seventh Year (A.D. 1)
5. School Days in Nazareth
6. His Eighth Year (A.D. 2)

소개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맞본 불안정과 염려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떼지 않았고, 이 가족은 거기에 정착해서 정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았고, **요셉**은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으므로,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목수로 고용돼서 일하다가, 당시에 건축 중이던 공공건물들 가운데 하나에 고용된, 큰 집단의 인부를 감독하는 직책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이 체험은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에, 하청업자 및 건축업자가 되는 계기가 됐다.

예수가 무기력한 아기였던 이 처음 몇 해 동안 내내, **마리아**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뤄야 할 그의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거나, 아이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종일관 계속 가까이서 돌봤으며; 어떤 어머니도 **마리아**보다 더 아이에게 헌신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우연히 살게 됐던 그 집에는, 마침 그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두 명 있었고,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에도, 놀이_동무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가 여섯 명 있었다. 처음에 **마리아**는 늘 **예수**를 곁에 가까이 두려고 했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INTRODUCTION

123:0.1 (1355.1) OWING to the uncertainties and anxieties of their sojourn in Bethlehem, Mary did not wean the babe until they had arrived safely in Alexandria, where the family was able to settle down to a normal life. They lived with kinsfolk, and Joseph was well able to support his family as he secured work shortly after their arrival. He was employed as a carpenter for several months and then elevated to the position of foreman of a large group of workmen employed on one of the public buildings then in process of construction. This new experience gave him the idea of becoming a contractor and builder after their return to Nazareth.

123:0.2 (1355.2) All through these early years of Jesus' helpless infancy, Mary maintained one long and constant vigil lest anything befall her child which might jeopardize his welfare or in any way interfere with his future mission on earth; no mother was ever more devoted to her child. In the home where Jesus chanced to be there were two other children about his age, and among the near neighbors there were six others whose ages were sufficiently near his own to make them acceptable play-fellows. At first Mary was disposed to keep Jesus close by her side. She feared something might

마당에서 놀도록 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요셉**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체험을, **예수**에게서 뺏을 수 있음을 **마리아**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도, 과도한 격리와 유별난 보호의 그런 계획이, 어찌면 그를 수줍어하고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약속의 아이를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게 허락하자는 계획에 동의했으며; 이런 결정에 순종했지만, **마리아**는 아이들이 집 주변과 마당에서 노는 동안 항상 지켜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오직 깊은 애정을 지닌 어머니만이, 갓난아기 때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아들의 안전 때문에 항상 마음에 품고 다녔던, **마리아**의 그 무거운 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던 2년 동안 내내, **예수**는 아주 건강했고 계속 정상적으로 자라났다. 몇몇 친구와 친척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요셉**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멤피스**에 있는 **이크나톤**의 먼 후예인 몇몇 친구들에게 이것을 누설했으며, **나사렛** 가족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무리의 신자(信者)들과 함께 **요셉**의 친척이자_후원자의 호화로운 집에 모여서, **나사렛**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아이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때 모였던 친구들이,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판 사본 전권(全卷)을 **예수**에게 선물로 드렸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문서의 이 사본은, **이집트**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의 청을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내 사양할 때까지, **요셉**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그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틴**의 어떤 이름난 장소에 있는 것보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함으로써, 이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설득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틴**으로 떠나는 일을 얼마 동안 연기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친구 **이즈라온**이 소유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옴바**로 향했으며, 기원전 4년 8월 하순에 그 항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친구 및 친척들과 상의하느라고, 거기서 9월 한 달을 보냈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요셉**은,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자가 될 것을 정말로 믿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 **다윗** 자손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조상 가운데 한사람이 **다윗** 혈통 후손의 가문에 입양됐기 때문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새 계승자가 양육되

happen to him if he were allowed to play in the garden with the other children, but Joseph, with the assistance of his kinsfolk, was able to convince her that such a course would deprive Jesus of the helpful experience of learning how to adjust himself to children of his own age. And Mary, realizing that such a program of undue sheltering and unusual protection might tend to make him self-conscious and somewhat self-centered, finally gave assent to the plan of permitting the child of promise to grow up just like any other child; and though she was obedient to this decision, she made it her business always to be on watch while the little folks were at play about the house or in the garden. Only an affectionate mother can know the burden that Mary carried in her heart for the safety of her son during these years of his infancy and early childhood.

123:0.3 (1355.3) Throughout the two years of their sojourn at Alexandria, Jesus enjoyed good health and continued to grow normally. Aside from a few friends and relatives no one was told about Jesus' being a "child of promise." One of Joseph's relatives revealed this to a few friends in Memphis, descendants of the distant Ikhnaton, and they, with a small group of Alexandrian believers, assembled at the palatial home of Joseph's relative-benefactor a short time before the return to Palestine to wish the Nazareth family well and to pay their respects to the child. On this occasion the assembled friends presented Jesus with a complete copy of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But this copy of the Jewish sacred writings was not placed in Joseph's hands until both he and Mary had finally declined the invitation of their Memphis and Alexandrian friends to remain in Egypt. These believers insisted that the child of destiny would be able to exert a far greater world influence as a resident of Alexandria than of any designated place in Palestine. These persuasions delayed their departure for Palestine for some time after they received the news of Herod's death.

123:0.4 (1356.1) Joseph and Mary finally took leave of Alexandria on a boat belonging to their friend Ezraeon, bound for Joppa, arriving at that port late in August of the year 4 B.C. They went directly to Bethlehem, where they spent the entire month of September in counsel with their friends and relatives concerning whether they should remain there or return to Nazareth.

123:0.5 (1356.2) Mary had never fully given up the idea that Jesus ought to grow up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Joseph did not really believe that their son was to become a kingly deliverer of Israel. Besides, he knew that he himself was not really a descendant of David; that his being reckoned among the offspring of David was due to the adoption of one of his ancestors into the Davidic line of descent. Mary, of course, thought the City of

기에는 **다윗의 성읍**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켈라오** 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있게 되기를 더 바랬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지방**에 있는 어떤 다른 도시 경우에도 아이의 안전에 대해 매우 염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통치 방법을 더 추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유 외에도, **요셉**은 그 아이를 기르고 교육할 곳으로는 **갈릴리**가 더 좋은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마리아**를 설득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10월 1일 경에,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리아**와 모든 친구들을 확신시키게 됐다. 따라서 그들은, 기원전 4년 10월 초에 **베들레헴**을 떠났고, **리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마리아**와 아이는 짐을 나르는 새로 구입한 짐승을 탔고, **요셉**과 다섯 명의 친척은 걸어갔으며, **요셉**의 친척은, 그들이 **나사렛**으로 홀로 여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단** 계곡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를 두려워했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어린 나이의 아이와 함께 두 명만의 여행자가 가기에는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1. 나사렛으로 돌아옴

여행한지 4일째 되던 날에, 일행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나사렛** 집에 도착했고, 그 집에는 **요셉**의 결혼한 형제 가운데 하나가 3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 매우 놀랐으며; 그들이 일을 매우 은밀히 추진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물론 **마리아** 쪽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가 자기 가족과 함께 그다음 날 이사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출생 후 처음으로 단출한 가족끼리 자기 집에 정착해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요셉**은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목수로서 일감을 확보했고,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그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올 당시에, **예수**는 3년 2개월쯤 됐다. 그는 이 모든 여행 동안 아주 잘 견뎠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고,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자기 공간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흥분으로 아이답게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지냈던 놀이동무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나사렛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말을 **갈릴리**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 퍼뜨리는 것은 현명치 않을 것이라고, **요셉**이 **마리아**를 설득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

David the most appropriate place in which the new candidate for David's throne could be reared, but Joseph preferred to take chances with Herod Antipas rather than with his brother Archelaus. He entertained great fears for the child's safety in Bethlehem or in any other city in Judea, and surmised that Archelaus would be more likely to pursue the menacing policies of his father, Herod, than would Antipas in Galilee. And besides all these reasons, Joseph was outspoken in his preference for Galilee as a better place in which to rear and educate the child, but it required three weeks to overcome Mary's objections.

123:0.6 (1356.3) By the first of October Joseph had convinced Mary and all their friends that it was best for them to return to Nazareth. Accordingly, early in October, 4 B.C., they departed from Bethlehem for Nazareth, going by way of Lydda and Scythopolis. They started out early one Sunday morning, Mary and the child riding on their newly acquired beast of burden, while Joseph and five accompanying kinsmen proceeded on foot; Joseph's relatives refused to permit them to make the trip to Nazareth alone. They feared to go to Galilee by Jerusalem and the Jordan valley, and the western routes were not altogether safe for two lone travelers with a child of tender years.

1. BACK IN NAZARETH

123:1.1 (1356.4) On the fourth day of the journey the party reached its destination in safety. They arrived unannounced at the Nazareth home, which had been occupied for more than three years by one of Joseph's married brothers, who was indeed surprised to see them; so quietly had they gone about their business that neither the family of Joseph nor that of Mary knew they had even left Alexandria. The next day Joseph's brother moved his family, and Mary, for the first time since Jesus' birth, settled down with her little family to enjoy life in their own home. In less than a week Joseph secured work as a carpenter, and they were supremely happy.

123:1.2 (1356.5) Jesus was about three years and two months old at the time of their return to Nazareth. He had stood all these travels very well and was in excellent health and full of childish glee and excitement at having premises of his own to run about in and to enjoy. But he greatly missed the association of his Alexandrian playmates.

123:1.3 (1356.6) On the way to Nazareth Joseph had persuaded Mary that it would be unwise to spread the word among their Galilean friends and relatives that Jesus was a child of promise. They agreed to refrain from all mention of these matters to anyone. And they were both very faithful in keeping this promise.

예수가 네 살 되던 해 전체는, 정상적인 육체 발육과 비범한 정신 활동이 있던 기간이었다. 그는 당시에 나이가 비슷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웃 소년과 매우 친한 사이가 됐다. **예수**와 **야곱**은 항상 즐겁게 놀았으며, 그들은 자라면서 훌륭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무가 됐다.

이 **나사렛** 가족의 생활 중에서 그다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둘째 아이 **야고보**의 출생이었다. **예수**께서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으며, 아기의 초기 활동을 그저 지켜보려고, 오랫동안 그 주변에서 있곤 했다.

같은 해 한여름에, **요셉**은, 마을의 공동 우물과 대상{隊商}들이 묵어가는 장소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이 후로 날이 갈수록 그는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두 명의 형제 및 기술자 몇 명과 연합했고, 그들을 일하러 내보낸 동안, 작업장에 남아서 멍에나 쟁기 등을 만들거나 다른 목공일을 했다. 그는 가족을 가공하고 밭줄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커가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 **예수**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세상 방방곡곡에서 오는 대상 안내자들과 여행객의 대화와 잡담에 귀 기울이면서,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데, 거의 같은 양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께서 네 살이 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에, 대상{隊商} 여행자들과 접촉함으로 인한 악성 장{腸} 전염병이 발발해서 **나사렛**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크게 우려했으므로,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사리드** 근방 **므깃도** 거리에 있는 오빠의 시골집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피신했다. 그들은 두 달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맛보는 농장 생활을 무척 즐겼다.

2. 다섯 살 되던 해 (기원전 2년)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1년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첫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으며; **낙원 아버지**의 거룩한 선물인 **사고 조율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도래했는데, 이 **조율사**는 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복무한 적이 있었고, 그리하여 초인적 존재가 필사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육신화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체험을 획득했다. 이 사건은 기원전 2년 2월 11일에 일어났다. **예수**는 신성한 그 **관찰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자각하지 못했으며, 그날 이전이나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아이의 정신 속에 거하면서, 그 정신의 궁극적 영화{靈化}를 위하여 일하고, 그의 진화하는 불멸{不滅}하는 혼의 영원한 생존을 위하여 일하고

123:1.4 (1357.1) Jesus' entire fourth year was a period of normal physical development and of unusual mental activity. Meantime he had formed a very close attachment for a neighbor boy about his own age named Jacob. Jesus and Jacob were always happy in their play, and they grew up to be great friends and loyal companions.

123:1.5 (1357.2) The next important event in the life of this Nazareth family was the birth of the second child, James, in the early morning hours of April 2, 3 B.C. Jesus was thrilled by the thought of having a baby brother, and he would stand around by the hour just to observe the baby's early activities.

123:1.6 (1357.3) It was midsummer of this same year that Joseph built a small workshop close to the village spring and near the caravan tarrying lot. After this he did very little carpenter work by the day. He had as associates two of his brothers and several other mechanics, whom he sent out to work while he remained at the shop making yokes and plows and doing other woodwork. He also did some work in leather and with rope and canvas. And Jesus, as he grew up, when not at school, spent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helping his mother with home duties and watching his father work at the shop, meanwhile listening to the conversation and gossip of the caravan conductors and passengers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123:1.7 (1357.4) In July of this year, one month before Jesus was four years old, an outbreak of malignant intestinal trouble spread over all Nazareth from contact with the caravan travelers. Mary became so alarmed by the danger of Jesus being exposed to this epidemic of disease that she bundled up both her children and fled to the country home of her brother, several miles south of Nazareth on the Megiddo road near Sarid. They did not return to Nazareth for more than two months; Jesus greatly enjoyed this, his first experience on a farm.

2. THE FIFTH YEAR (2 B.C.)

123:2.1 (1357.5) In something more than a year after the return to Nazareth the boy Jesus arrived at the age of his first personal and wholehearted moral decision; and there came to abide with him a Thought Adjuster, a divine gift of the Paradise Father, which had aforesaid served with Machiventa Melchizedek, thus gaining the experience of functioning in connection with the incarnation of a supermortal being living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is event occurred on February 11, 2 B.C. Jesus was no more aware of the coming of the divine Monitor than are the millions upon millions of other children who, before and since that day, have likewise received these

록, 이 **사고 조율사**를 받아들이는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2월이었던 이날, **미가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온전히 육신화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주 통치자들**의 직접 친히 감독하는 일은 종료됐다. 그 시간부터, 인간으로서 육신화를 나타내는 동안 내내, **예수**를 보호하는 임무는 내주하는 **조율사** 및 관련된 스랍 수호자들의 관리에 맡겨지도록 정해졌고, 이 일은 행성 상관들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특정한 한정적 임무를 실행하도록 배정된, 중도 {中道} 피조물의 사역으로 때때로 보충됐다.

예수는 같은 해 8월에 다섯 살이 됐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때를 그의 생애에서 (달력으로) 다섯 살 되던 해라고 부를 것이다. 기원전 2년인 이 해에, **예수**의 다섯 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날인 7월 11일 밤에, **예수**께서는 여동생 **미리암**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저녁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각기 독자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방식에 관해,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예수**의 어린 시절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요셉**은, 이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충실히 대답하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수**가 다섯 살이었을 때부터 열 살 될 때까지 질문이 끊어지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질문에 대해 그와 함께 토론하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떠오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런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 될 만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이 가정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요셉**은 새 가게를 지었고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너무 매여 있느라 **야고보**에게는 요람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었지만, **미리암**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요셉**이 미리 요람을 만들어 놔으므로, **미리암**은 편안한 침대 속에 누워서 그 주위에 둘러선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어린 **예수**는 이런 모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을 실컷 체험했다. 그는 어린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들을 돌보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됐다.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갈릴리**의 이런 **유대인** 가정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매우 드물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눴다: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ir minds and work for the ultimate spiritualization of these minds and the eternal survival of their evolving immortal souls.

123:2.2 (1357.6) On this day in February the direct and personal supervision of the Universe Rulers, as it was related to the integrity of the childlike incarnation of Michael, terminated. From that time on throughout the human unfolding of the incarnation, the guardianship of Jesus was destined to rest in the keeping of this indwelling Adjuster and the associated seraphic guardians,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by the ministry of midway creatures assigned for the performance of certain definite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of their planetary superiors.

123:2.3 (1357.7) Jesus was five years old in August of this year, and we will, therefore, refer to this as his fifth (calendar) year of life. In this year, 2 B.C., a little more than one month before his fifth birthday anniversary, Jesus was made very happy by the coming of his sister Miriam, who was born on the night of July 11. During the evening of the following day Jesus had a long talk with his father concerning the manner in which various groups of living things are born into the world as separate individuals. The most valuable part of Jesus' early education was secured from his parents in answer to his thoughtful and searching inquiries. Joseph never failed to do his full duty in taking pains and spending time answering the boy's numerous questions. From the time Jesus was five years old until he was ten, he was one continuous question mark. While Joseph and Mary could not always answer his questions, they never failed fully to discuss his inquiries and in every other possible way to assist him in his efforts to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of the problem which his alert mind had suggested.

123:2.4 (1358.1) Since returning to Nazareth, theirs had been a busy household, and Joseph had been unusually occupied building his new shop and getting his business started again. So fully was he occupied that he had found no time to build a cradle for James, but this was corrected long before Miriam came, so that she had a very comfortable crib in which to nestle while the family admired her. And the child Jesus heartily entered into all these natural and normal home experiences. He greatly enjoyed his little brother and his baby sister and was of great help to Mary in their care.

123:2.5 (1358.2) There were few homes in the gentile world of those days that could give a child a better intellectual, moral, and religious training than the Jewish homes of Galilee. These Jews had a systematic program for rear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They divided a child's life into seven stages:

1. 생후 8일까지의 신생아

2. 젖을 먹는 아이

3. 젖을 뗀 아이

4. 다섯 번째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

5.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고, 아들의 경우에는 가르칠 책임을 아버지가 맡게 되는 시기

6. 청소년기의 남녀 아이

7. 남녀 젊은이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까지만 어머니가 아이 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의 관습이었으며,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인 경우에 그 후의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졌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해에 **갈릴리 유대인**의 아동성장 가운데 다섯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마리아**는 앞으로의 훈육을 **요셉**에게 정식으로 넘겨주게 됐다.

이제는 **예수**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교육에 대한 직접 책임을 **요셉**이 맡게 됐지만, 그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졌다. **마리아**는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와 꽃들에 관한 지식과 가꾸는 방법을 **예수**에게 가르쳤다. **마리아**는 또한 (여름에는 침실로 사용되는) 지붕 위에 모래를 넣은 낮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예수**가 지도를 그리거나,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까지 쓰는 연습을 일찍부터 하게 했으며, 그는 오래지 않아서 이 세 언어 전부를 유창하게 읽고 쓰며 말할 수 있게 됐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거의 온전한 아이로 보였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달력으로) 다섯 번째 해 후반기 즈음에, 처음으로 겪은 사소한 질병인, 약간의 소화불량을 체험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종종 만아들의 장래에 대해 의논했는데, 너희가 그때 옆에 있었더라도,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처럼, 전형적이고 건강하며 아무 걱정 없는, 단지 매우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것만 목격했을 것이다.

3. 여섯 살 되던 해의 사건들 (기원전 1년)

예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미 **아람어**의 **갈릴리** 사투리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리아**도 **그리스어**를 약간 알았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리스어** 교

123:2.6 (1358.3) 1. The newborn child, the first to the eighth day.

123:2.7 (1358.4) 2. The suckling child.

123:2.8 (1358.5) 3. The weaned child.

123:2.9 (1358.6) 4. The period of dependence on the mother, lasting up to the end of the fifth year.

123:2.10 (1358.7) 5. The beginning independence of the child and, with sons, the father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ir education.

123:2.11 (1358.8) 6. The adolescent youths and maidens.

123:2.12 (1358.9) 7. The young men and the young women.

123:2.13 (1358.10) It was the custom of the Galilean Jews for the mother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a child's training until the fifth birthday, and then, if the child were a boy, to hold the father responsible for the lad's education from that time on. This year, therefore, Jesus entered upon the fifth stage of a Galilean Jewish child's career, and accordingly on August 21, 2 B.C., Mary formally turned him over to Joseph for further instruction.

123:2.14 (1358.11) Though Joseph was now assuming the direct responsibility for Jesus' intellectual and religious education, his mother still interested herself in his home training. She taught him to know and care for the vines and flowers growing about the garden walls which completely surrounded the home plot. She also provided on the roof of the house (the summer bedroom) shallow boxes of sand in which Jesus worked out maps and did much of his early practice at writing Aramaic, Greek, and later on, Hebrew, for in time he learned to read, write, and speak, fluently, all three languages.

123:2.15 (1358.12) Jesus appeared to be a well-nigh perfect child physically and continued to make normal progress mentally and emotionally. He experienced a mild digestive upset, his first minor illness, in the latter part of this, his fifth (calendar) year.

123:2.16 (1359.1) Though Joseph and Mary often talked about the future of their eldest child, had you been there, you would only have observed the growing up of a normal, healthy, carefree, but exceedingly inquisitive child of that time and place.

3. EVENTS OF THE SIXTH YEAR (1 B.C.)

123:3.1 (1359.2) Already, with his mother's help, Jesus had mastered the Galilean dialect of the Aramaic tongue; and now his father began teaching him Greek. Mary spoke little Greek, but Joseph was a fluent speaker of both Aramaic and Greek. The

본으로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히브리** 성서 사본--곧 **시편**을 포함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완성본--이 사용됐다. **나사렛** 전체, **그리스어**로 번역된 전권[全卷] **성서** 사본이 오직 두개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 목수 가정에서 갖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됐고, **예수**는 자라면서 진지한 연구자와 신실한 구도자[求道者]를 끝없이 접할 수 있었다. **예수**는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귀중한 책의 보관을 책임지게 됐고, 또한 그의 여섯 번째 생일에는, 이 신성시되는 책이 **알렉산드리아** 친구들과 친척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그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됐다.

예수의 어린 시절 가운데 첫 번째 큰 충격은, 그가 아직 여섯 살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그 소년의 생각에, 아버지는--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하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방금 일어난 약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아들아, 난 정말 모르겠구나”라고 아버지가 대답하자, 호기심 많은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오랫동안의 혼란스런 각성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 완전한_지혜와 완전한_지식이 없음을 알게 됐다.

요셉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예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그런 대답은 더 어렵고 당황스런 질문을 즉시 야기할 것이라고, 순간적인 깨우침이 그에게 떠올랐다. 심지어 **예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질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나 마귀의 책임이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으로서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교리를, **예수**도 오랫동안 가까이 받아들이고, 이것은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뤘지만,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을,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그는 매우 일찍부터 의문을 갖게 됐다.

예수가 아직 여섯 살 되기 전인 기원전 1년 초 여름에,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찾아왔다. 그들의 기억에서 첫 만남이었던 이 기간에, **예수**와 **요한**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방문자들이 겨우 며칠만 머물렀지만,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들의 장래를 비롯해서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그렇게 몰두해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지붕 위에 있는 모래 상자에서 벽돌을 갖고 놀기도 하고, 또한 진짜 아이 같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온 **요한**과 만난 후에,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안식일** 제례, 회당 설교, 및 연례적인 기념일 축제의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모든 절기의 의

textbook for the study of the Greek language was the copy of the Hebrew scriptures — a complete version of the law and the prophets, including the Psalms — which had been presented to them on leaving Egypt. There were only two complete copies of the Scriptures in Greek in all Nazareth, and the possession of one of them by the carpenter's family made Joseph's home a much-sought place and enabled Jesus, as he grew up, to meet an almost endless procession of earnest students and sincere truth seekers. Before this year ended, Jesus had assumed custody of this priceless manuscript, having been told on his sixth birthday that the sacred book had been presented to him by Alexandrian friends and relatives. And in a very short time he could read it readily.

123:3.2 (1359.3) The first great shock of Jesus' young life occurred when he was not quite six years old. It had seemed to the lad that his father — at least his father and mother together — knew everything. Imagine, therefore, the surprise of this inquiring child, when he asked his father the cause of a mild earthquake which had just occurred, to hear Joseph say, “My son, I really do not know.” Thus began that long and disconcerting disillusionment in the course of which Jesus found out that his earthly parents were not all-wise and all-knowing.

123:3.3 (1359.4) Joseph's first thought was to tell Jesus that the earthquake had been caused by God, but a moment's reflection admonished him that such an answer would immediately be provocative of further and still more embarrassing inquiries. Even at an early age it was very difficult to answer Jesus' questions about physical or social phenomena by thoughtlessly telling him that either God or the devil was responsible. In harmony with the prevailing belief of the Jewish people, Jesus was long willing to accept the doctrine of good spirits and evil spirits as the possible explanation of mental and spiritual phenomena, but he very early became doubtful that such unseen influences were responsible for the physical happenings of the natural world.

123:3.4 (1359.5) Before Jesus was six years of age, in the early summer of 1 B.C., Zacharias and Elizabeth and their son John came to visit the Nazareth family. Jesus and John had a happy time during this, their first visit within their memories. Although the visitors could remain only a few days, the parents talked over many things, including the future plans for their sons. While they were thus engaged, the lads played with blocks in the sand on top of the house and in many other ways enjoyed themselves in true boyish fashion.

123:3.5 (1359.6) Having met John, who came from near Jerusalem, Jesus began to evince an unusual interest in the history of Israel and to inquire in great detail as to the meaning of the Sabbath rites, the synagogue sermons, and the

미에 대해 설명해 줬다. 첫째는 한겨울에 행해지는 불을 밝히는 축제였는데, 8일간 계속됐으며, 첫째 날 밤에 한 개의 촛불을 켜고, 매일 밤마다 등불을 한 개씩 늘려 가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모세**의 예배 의식을 회복한 후의 성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른 봄철의 **부림절** 축제, 즉 **에스더** 및 그녀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출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는 장엄한 **유월절**이 이어졌으며, 어른들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하하는 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곤 했다. 그다음에 수확하는 축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절기로서, 속죄의 날인 **신년(新年)** 축제였다. 이런 축전과 행사 중에서 어떤 것은 **예수**의 어린 정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봤고, 그런 후에는, 모든 **유대** 민족의 연중(年中) 휴가철인, 밖에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환희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장막절** 축제의 즐거움에 적극 참여했다.

이 해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기도에 대해 **예수**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것을 고집했다. 엄숙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신격(神格)**과 교통하지 않는 이런 방식은,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고치라고 설득하지는 않았으며; 그는 배운 대로 기도한 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고집했다.

같은 해 6월에, **요셉**은 **나사렛**에 있는 작업장을 형제들에게 넘겨주고, 건축업자로서의 일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놨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가족의 수입은 세 배 이상이 됐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 이 **나사렛** 가족은 다시는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불어났고, 그들은 가외의 교육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게 됐지만, 증가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수입도 계속 늘어났다.

그 후 몇 년간, **요셉**은 **나사렛**과 그 근방에서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헬**, **막달라**, **나인**, **세포리**, **가버나움**, 및 **엔도르**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다. 집안일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를 돕기에 충분할 만큼 **야고보**가 자라게 되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서 근방의 도시와 마을들을 자주 여행했다. **예수**는 예리한 관찰자였고, 그래서 집을 떠난 이 여행에서 실제적인 많은 지식을 얻었으며;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았던 방식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축적하고 있었다.

이 해에 **예수**는, 가족의 협동과 가정 규율의

recurring feasts of commemoration. His father explained to him the meaning of all these seasons. The first was the midwinter festive illumination, lasting eight days, starting out with one candle the first night and adding one each successive night; this commemorated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Mosaic services by Judas Maccabee. Next came the early springtime celebration of Purim, the feast of Esther and Israel's deliverance through her. Then followed the solemn Passover, which the adults celebrated in Jerusalem whenever possible, while at home the children would remember that no leavened bread was to be eaten for the whole week. Later came the feast of the first-fruits, the harvest ingathering; and last, the most solemn of all, the feast of the new year, the day of atonement. While some of these celebrations and observances were difficult for Jesus' young mind to understand, he pondered them seriously and then entered fully into the jo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the annual vacation season of the whole Jewish people, the time when they camped out in leafy booths and gave themselves up to mirth and pleasure.

123:3.6 (1360.1) During this year Joseph and Mary had trouble with Jesus about his prayers. He insisted on talking to his heavenly Father much as he would talk to Joseph, his earthly father. This departure from the more solemn and reverent modes of communication with Deity was a bit disconcerting to his parents, especially to his mother, but there was no persuading him to change; he would say his prayers just as he had been taught, after which he insisted on having “just a little talk with my Father in heaven.”

123:3.7 (1360.2) In June of this year Joseph turned the shop in Nazareth over to his brothers and formally entered upon his work as a builder. Before the year was over, the family income had more than trebled. Never again, until after Joseph's death, did the Nazareth family feel the pinch of poverty. The family grew larger and larger, and they spent much money on extra education and travel, but always Joseph's increasing income kept pace with the growing expenses.

123:3.8 (1360.3) The next few years Joseph did considerable work at Cana, Bethlehem (of Galilee), Magdala, Nain, Sepphoris, Capernaum, and Endor, as well as much building in and near Nazareth. As James grew up to be old enough to help his mother with the housework and care of the younger children, Jesus made frequent trips away from home with his father to these surrounding towns and villages. Jesus was a keen observer and gained much practical knowledge from these trips away from home; he was assiduously storing up knowledge regarding man and the way he lived on earth.

123:3.9 (1360.4) This year Jesus made great progress

요구사항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과 강한 충동을 조절하는 데 많은 진보를 보였다. **마리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 면에서 **예수**를 더 많이 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는 그 소년 곁에 앉아서, 가족 전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자제하는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참된 이유와 그 이면적 이유까지도 충분히 설명하곤 했다. 그 상황이 **예수**에게 다 설명됐을 때, 그는 항상 부모가 바라는 것과 가족의 규칙에 현명하게 그리고 기꺼이 협조했다.

그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여가 시간 대부분을 낮에는 꽃과 식물, 그리고 밤에는 별을 연구하면서 보냈다. 그는, 이 엄격한 **나사렛**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지키는 취침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까지, 자지 않은 채 누워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신기롭게 응시하기를 좋아하는, 유별난 경향을 보였다.

4. 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년)

이 해는 **예수**의 생애에서 정말로 다사(多事)한 한 해였다. 1월 초에 **갈릴리**에는 굉장한 폭설이 내렸다. 눈이 2피트 넘게 왔으며, 이것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온 눈이었고, **나사렛**에서는 100년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다.

예수 시대에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 생활은 비교적 제한됐으며; 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교적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 즉 그들이 자주 목격하고 호화로운 모습의 예식(禮式)들을 흉내 내며 놀았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했지만, 후대의 아이들이 대단히 즐겼던 그런 조직화된 오락은 거의 없었다.

예수는, 이웃집 소년과,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와 함께, 가족이 경영하는 목공소 한쪽 구석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거기서 톱밥과 나무토막을 갖고 매우 재미있게 놀았다. **안식일**에는 특정한 종류의 놀이들이 금지됐는데, **예수**로서는 그것이 왜 해로운지 항상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 시대와 세대의 환경으로는 나타내 보일 기회가 거의 없는 유머와 놀이에 대한 수용력을 갖고 있었지만, 열네 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항상 명랑하고 밝게 보였다.

마리아는 집에 붙어 있는 축사(畜舍) 지붕에 비둘기 집을 마련했고, 그들은 비둘기를 팔아서 번 이익금을 특별 자선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는 그것에서 십일조를 떼어 회당 직원에게 넘겨준 후에, 나머지 기금을 관리했다.

in adjusting his strong feelings and vigorous impulses to the demands of family co-operation and home discipline. Mary was a loving mother but a fairly strict disciplinarian. In many ways, however, Joseph exerted the greater control over Jesus as it was his practice to sit down with the boy and fully explain the real and underlying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disciplinary curtailment of personal desires in deference to the welfare and tranquillity of the entire family. When the situation had been explained to Jesus, he was always intelligently and willingly co-operative with parental wishes and family regulations.

123:3.10 (1360.5) Much of his spare time — when his mother did not require his help about the house — was spent studying the flowers and plants by day and the stars by night. He evinced a troublesome penchant for lying on his back and gazing wonderingly up into the starry heavens long after his usual bedtime in this well-ordered Nazareth household.

4. THE SEVENTH YEAR (A.D. 1)

123:4.1 (1361.1) This was, indeed, an eventful year in Jesus' life. Early in January a great snowstorm occurred in Galilee. Snow fell two feet deep, the heaviest snowfall Jesus saw during his lifetime and one of the deepest at Nazareth in a hundred years.

123:4.2 (1361.2) The play life of Jewish children in the times of Jesus was rather circumscribed; all too often the children played at the more serious things they observed their elders doing. They played much at weddings and funerals, ceremonies which they so frequently saw and which were so spectacular. They danced and sang but had few organized games, such as children of later days so much enjoy.

123:4.3 (1361.3) Jesus, in company with a neighbor boy and later his brother James, delighted to play in the far corner of the family carpenter shop, where they had great fun with the shavings and the blocks of wood. It was always difficult for Jesus to comprehend the harm of certain sorts of play which were forbidden on the Sabbath, but he never failed to conform to his parents' wishes. He had a capacity for humor and play which was afforded little opportunity for expression in the environment of his day and generation, but up to the age of fourteen he was cheerful and lighthearted most of the time.

123:4.4 (1361.4) Mary maintained a dovecote on top of the animal house adjoining the home, and they used the profits from the sale of doves as a special charity fund, which Jesus administered after he deducted the tithe and turned it over to the officer of the synagogue.

이때까지 **예수**가 유일하게 겪은 실제 사고는, 천막으로 지붕을 만든 침실로 올라가는 뒷마당 돌계단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7월의 모래폭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안에 발생했다. 고온 모래 돌풍을 동반하는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期}에 불어 왔고, 3월과 4월에 특히 심했다. 그런 폭풍이 7월에 분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 폭풍이 왔을 때 **예수**는 습관처럼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건기{乾期} 중에는 이곳이 그의 습관적인 놀이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모래 때문에 앞이 안보여서 계단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가 있은 후, **요셉**은 계단 양 옆에 난간을 설치했다.

이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미리 방지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로 돼있던 일시적인 중도{中道} 보호자들, 즉 그 소년을 보살피도록 임명돼 있는 한 명의 1차 중도자와 다른 한 명의 2차 중도자의 태만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또한 수호 스라빔의 책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 **엔도르**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이 작은 사고로 마음에 매우 염려가 되어, 어리석게도 몇 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애썼다.

물리적 자연계에서 늘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물질적 사고에, 천상의 인격체들은 독단적으로 끼여 들지 않는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지 중도 피조물만이 운명의 남녀 인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질 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아무리 특별한 상황일지라도, 이 존재들은 오직 상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 있는 이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사소한 사고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너희가 활동적인 한 소년의 평범한 유년 및 어린 시절을 그려 본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우려를 끼쳤는지도 상상이 될 것이다.

나사렛 가족 가운데 넷째 아이인 **요셉**이, 서기 1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태어났다.

5. 나사렛에서 학교생활

예수는 이제 일곱 살이 됐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이 나이에 회당{會堂} 학교에서 공식 교육을 시작하게 돼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나사렛**에서, 그는 사건이 많았던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이 소년은 이미, 두 가지 언어, 즉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쓰며 말하는 법을 배우기에 익숙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앞에 닥친 새로운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123:4.5 (1361.5) The only real accident Jesus had up to this time was a fall down the back-yard stone stairs which led up to the canvas-roofed bedroom. It happened during an unexpected July sandstorm from the east. The hot winds, carrying blasts of fine sand, usually blew during the rainy season, especially in March and April. It was extraordinary to have such a storm in July. When the storm came up, Jesus was on the housetop playing, as was his habit, for during much of the dry season this was his accustomed playroom. He was blinded by the sand when descending the stairs and fell. After this accident Joseph built a balustrade up both sides of the stairway.

123:4.6 (1361.6) There was no way in which this accident could have been prevented. It was not chargeable to neglect by the midway temporal guardians, one primary and one secondary midwayer having been assigned to the watchcare of the lad; neither was it chargeable to the guardian seraphim. It simply could not have been avoided. But this slight accident, occurring while Joseph was absent in Endor, caused such great anxiety to develop in Mary's mind that she unwisely tried to keep Jesus very close to her side for some months.

123:4.7 (1361.7) Material accidents, commonplace occurrences of a physical nature, are not arbitrarily interfered with by celestial personalities.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only midway creatures can intervene in material conditions to safeguard the persons of men and women of destiny, and even in special situations these beings can so act only in obedience to the specific mandates of their superiors.

123:4.8 (1361.8) And this was but one of a number of such minor accidents which subsequently befell this inquisitive and adventurous youth. If you envisage the average childhood and youth of an aggressive boy, you will have a fairly good idea of the youthful career of Jesus, and you will be able to imagine just about how much anxiety he caused his parents, particularly his mother.

123:4.9 (1362.1) The fourth member of the Nazareth family, Joseph, was born Wednesday morning, March 16, A.D. 1.

5. SCHOOL DAYS IN NAZARETH

123:5.1 (1362.2) Jesus was now seven years old, the age when Jewish children were supposed to begin their formal education in the synagogue schools. Accordingly, in August of this year he entered upon his eventful school life at Nazareth. Already this lad was a fluent reader, writer, and speaker of two languages, Aramaic and Greek. He was now to acquaint himself with the task of learning to read, write, and speak the Hebrew language. And he

그는 --열 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나사렛** 회당에 소속된 초등학교에 다녔다. 3년의 이 기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대로 **율법서**의 기초 과정을 공부했다. 그다음 3년 동안,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신성시되는 율법 중에서 좀 더 심오한 교훈을 큰 소리로 반복해 읽는 방법으로 암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열세 살 되는 해에, 이 회당 학교를 졸업했고, 교육받은 “계명의 아들”로서 회당 관리{官吏}로부터 부모에게 인계됐다--이때부터는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부여됐으며; 따라서 이 해에, 아버지 어머니와 동행하여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나사렛에서는 학생들이 마루 위에 반원형{半圓形}으로 앉았고, 카잔이라 불리는, 회당 직원인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율법서들을 차례로 공부했고, 그다음에 **예언서**와 **시편**을 공부했다. **나사렛** 회당은 **히브리어**로 된 **성서** 사본 전권{全卷} 하나를 갖고 있었다. 열두 살 되기 전까지는 **성서**만 공부했다. 여름철에는 몇 달 동안 수업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예수는 **히브리어**를 일찍 통달했으며, 어떤 저명한 방문자도 **나사렛**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정규 **안식일** 예배 때 회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어** 성서를 읽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물론, 이 회당 학교들에는 교과서가 없었다. 수업 방식은, 카잔이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따라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다. 기록된 율법 책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크게 읽고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다음으로, **예수**는 비교적 공식적인 학교생활 외에,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수리소를 거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인간 본성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들자, 그는 쉬거나 요기하려고 우물 근처에 머물던 대상{隊商}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렸다.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므로, **예수**는 대부분의 대상 여행자나 안내원과 대화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나사렛은 대상들이 경유하는 곳이었으며, 여행 경로의 교차점이었고, 주로 이방인이 살았으며; 동시에 그곳은, **유대**의 전통적 율법에 대한 개방적 해석의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지방**의 경우보다 더 자유롭게 이방인과 교제했다. 그리고 **갈릴리**의 모

was truly eager for the new school life which was ahead of him.

123:5.2 (1362.3) For three years — until he was ten — he attended the elementary school of the Nazareth synagogue. For these three years he studied the rudiments of the Book of the Law as it was recorded in the Hebrew tongue.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he studied in the advanced school and committed to memory, by the method of repeating aloud, the deeper teachings of the sacred law. He graduated from this school of the synagogue during his thirteenth year and was turned over to his parents by the synagogue rulers as an educated “son of the commandment” — henceforth a responsible citizen of the commonwealth of Israel, all of which entailed his attendance at the Passovers in Jerusalem; accordingly, he attended his first Passover that year in company with his father and mother.

123:5.3 (1362.4) At Nazareth the pupils sat on the floor in a semicircle, while their teacher, the chazan, an officer of the synagogue, sat facing them. Beginning with the Book of Leviticus, they passed on to the study of the other books of the law, followed by the study of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 Nazareth synagogue possessed a complete copy of the Scriptures in Hebrew. Nothing but the Scriptures was studied prior to the twelfth year. In the summer months the hours for school were greatly shortened.

123:5.4 (1362.5) Jesus early became a master of Hebrew, and as a young man, when no visitor of prominence happened to be sojourning in Nazareth, he would often be asked to read the Hebrew scriptures to the faithful assembled in the synagogue at the regular Sabbath services.

123:5.5 (1362.6) These synagogue schools, of course, had no textbooks. In teaching, the chazan would utter a statement while the pupils would in unison repeat it after him. When having access to the written books of the law, the student learned his lesson by reading aloud and by constant repetition.

123:5.6 (1362.7) Next, in addition to his more formal schooling, Jesus began to make contact with human nature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s men from many lands passed in and out of his father's repair shop. When he grew older, he mingled freely with the caravans as they tarried near the spring for rest and nourishment. Being a fluent speaker of Greek, he had little trouble in conversing with the majority of the caravan travelers and conductors.

123:5.7 (1362.8) Nazareth was a caravan way station and crossroads of travel and largely gentile i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it was widely known as a center of liberal interpretation of Jewish traditional law. In Galilee the Jews mingled more freely with the gentiles than was their practice in

든 도시 중에서도 **나사렛**의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럽혀진다는 두려움에서 연유된 사회 제약에 대해서도, 가장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게 됐다.

예수는 도덕적 훈련과 영적 수양을 주로 집에서 받았다. 그의 지적이고 신학적인 교육은 카잔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실제적인 시험에 대비하여 정신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의 진정한 교육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습득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울린 동무들과 나눈 이런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인간 종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예수**는 그 속에서 사람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회당에서 교육 받는 전 과정 동안, 세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매우 총명한 학생이었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학교에서 과정을 졸업하게 됐을 때, “그 소년을 가르칠 수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탐구적인 질문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요셉**에게 털어놨다.

전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많은 것을 배웠고, 회당의 정기 **안식일** 설교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머물게 된 저명한 방문자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자라면서 **예수**는, 전체 **유대인** 세계에서 손꼽히는 많은 사상가가 해석하는 견해를 들었고, 또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다.

(**유대인**은 이때 의무교육법을 방금 시작했는데,) 일곱 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탄생 기념 성구(聖句)’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일종의 황금률(黃金律)이 되게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들이 열세 살에 졸업하게 됐을 때, 이 성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곤 했다. **예수**는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구절을 선택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기 위함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사렛은 **히브리** 나라에서 스물네 개의 사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의 사제들은, 전통적인 계명을 해석할 때, **유대지방**의 학자나 랍비들보다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안식일** 준수에서도 역시 더 자유로웠다. 그래서 **요셉**은 **안식일** 오후에 **예수**를 데리고 종종 산책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있었으며, 그

Judea. And of all the cities of Galilee, the Jews of Nazareth were most liberal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restrictions based on the fears of contamination as a result of contact with the gentiles. And these conditions gave rise to the common saying in Jerusalem,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123:5.8 (1363.1) Jesus received his moral training and spiritual culture chiefly in his own home. He secured much of his intellectual and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chazan. But his real education — that equipment of mind and heart for the actual test of grappling with the difficult problems of life — he obtained by mingling with his fellow men. It was this close association with his fellow men, young and old, Jew and gentile, that afforded him the opportunity to know the human race. Jesus was highly educated in that he thoroughly understood men and devotedly loved them.

123:5.9 (1363.2) Throughout his years at the synagogue he was a brilliant student, possessing a great advantage since he was conversant with three languages. The Nazareth chazan, on the occasion of Jesus' finishing the course in his school, remarked to Joseph that he feared he “had learned more from Jesus' searching questions” than he had “been able to teach the lad.”

123:5.10 (1363.3) Throughout his course of study Jesus learned much and derived great inspiration from the regular Sabbath sermons in the synagogue. It was customary to ask distinguished visitors, stopping over the Sabbath in Nazareth, to address the synagogue. As Jesus grew up, he heard many great thinkers of the entire Jewish world expound their views, and many also who were hardly orthodox Jews since the synagogue of Nazareth was an advanced and liberal center of Hebrew thought and culture.

123:5.11 (1363.4) When entering school at seven years (at this time the Jews had just inaugurated a compulsory education law), it was customary for the pupils to choose their “birthday text,” a sort of golden rule to guide them throughout their studies, one upon which they often expatiated at their graduation when thirteen years old. The text which Jesus chose was from the Prophet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for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meek,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set the spiritual prisoners free.”

123:5.12 (1363.5) Nazareth was one of the twenty-four priest centers of the Hebrew nation. But the Galilean priesthood was more libera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laws than were the Judean scribes and rabbis. And at Nazareth they were also more liberal regarding the observance of the Sabbath. It was therefore the custom for Joseph to take Jesus out for walks on Sabbath

들이 좋아하는 소풍 가운데 하나는, 사방의 **갈릴리** 지방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집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맑은 날에는, 북서쪽으로 **갈멜산** 한쪽 능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 내려간 것도 볼 수 있었으며; **예수**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오래된 계통 가운데 초기 사람인 **엘리아**에 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엘리아**는 **아합**을 책망하고 **바알** 사제들의 가면을 벗긴 사람이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헤르몬 산** 봉우리가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높이가 3천 피트나 되는 상부 능선은 만년설 {萬年雪}로 반짝였다. 멀리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 너머에 **모압**의 바위 언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남쪽과 동쪽으로, **데카볼리**에 있는 **그리스_로마** 풍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벽에 해가 비칠 때, 원형 극장과 허세를 부리는 듯 서있는 높은 신전과 함께, 그 도시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편으로 지는 해를 보려고 머뭇거리는 동안, 그들은 서쪽으로 멀리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배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길을 재촉하는 대상 행렬들을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길보아산**과 **사마리아**까지 뻗어있는, **에스드렐론**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를 내려다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시골길을 산책하면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을 공부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훈련은 단란한 가정에서 받은 것 이외에도, 자연과의 경건하고 교감 {交感}있는 접촉을 통해서 이뤄졌다.

예수는 여덟 살 되기 전에, **나사렛**의 모든 어머니와 젊은 여자들에게도 잘 알려졌고, 그들은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우물은 그의 집 가까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만나서 마을 전체에 관해 한담을 나누던, 교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같은 해에 **예수**는, 집에서 기르는 소의 우유를 짜고 다른 가축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이 해와 다음 해에, 그는 또한 치즈 만드는 법과 천 짜는 법도 배웠다. 그는 열 살이 되자 베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수**와 이웃 소년 **야곱**이, 흐르는 샘물 가까이서 일하던 도공 {陶工}과 친한 친구가 된 것도 바로 이때였으며; **나단**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자기 물레 위에서 흙을 주무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커서 함께 도공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나단**은 이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종종 진흙을 쥐서 갖고 놀 수 있게 했으며, 여러 다른 물건과 동물을 경쟁적으로 만들게 하여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애썼다.

6. 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년)

이 해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낸 한 해였다.

afternoons, one of their favorite jaunts being to climb the high hill near their home, from which they could obtain a panoramic view of all Galilee. To the northwest, on clear days, they could see the long ridge of Mount Carmel running down to the sea; and many times Jesus heard his father relate the story of Elijah, one of the first of that long line of Hebrew prophets, who reproved Ahab and exposed the priests of Baal. To the north Mount Hermon raised its snowy peak in majestic splendor and monopolized the skyline, almost 3,000 feet of the upper slopes glistening white with perpetual snow. Far to the east they could discern the Jordan valley and, far beyond, the rocky hills of Moab. Also to the south and the east, when the sun shone upon their marble walls, they could see the Greco-Roman cities of the Decapolis, with their amphitheatres and pretentious temples. And when they lingered toward the going down of the sun, to the west they could make out the sailing vessels on the distant Mediterranean.

123:5.13 (1364.1) From four directions Jesus could observe the caravan trains as they wended their way in and out of Nazareth, and to the south he could overlook the broad and fertile plain country of Esdraelon, stretching off toward Mount Gilboa and Samaria.

123:5.14 (1364.2) When they did not climb the heights to view the distant landscape, they strolled through the countryside and studied nature in her various moods in accordance with the seasons. Jesus' earliest training, aside from that of the home hearth, had to do with a reverent and sympathetic contact with nature.

123:5.15 (1364.3) Before he was eight years of age, he was known to all the mothers and young women of Nazareth, who had met him and talked with him at the spring, which was not far from his home, and which was one of the social centers of contact and gossip for the entire town. This year Jesus learned to milk the family cow and care for the other animals. During this and the following year he also learned to make cheese and to weave. When he was ten years of age, he was an expert loom operator. It was about this time that Jesus and the neighbor boy Jacob became great friends of the potter who worked near the flowing spring; and as they watched Nathan's deft fingers mold the clay on the potter's wheel, many times both of them determined to be potters when they grew up. Nathan was very fond of the lads and often gave them clay to play with, seeking to stimulate their creative imaginations by suggesting competitive efforts in modeling various objects and animals.

6. HIS EIGHTH YEAR (A.D. 2)

123:6.1 (1364.4) This was an interesting year at

예수는 비범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지런했고, 학생들 가운데 비교적 더 진취성을 보이는 3분의 1에 속했는데, 맡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그는 이 한 주 동안, 대개 **막달라** 근처의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어부{漁夫}인 삼촌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사렛**에서 5마일 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농장에서, (어머니의 형제인) 외삼촌과 시간을 보냈다.

비록 어머니가 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했지만, 차츰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을 용납하게 됐다. **예수**의 삼촌과 숙모들은 모두 그를 매우 좋아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 해와 그 뒤를 잇는 여러 해 동안, **예수**가 매 달 자기 집에 방문하도록 노골적으로 경쟁하곤 했다. 삼촌의 농장에서 (갓난아이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 주 동안 머문 것은 이 해 1월이었고, 5월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한 주 동안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다.

예수는 이 무렵에 **다마스쿠스**에서 온 수학 선생을 만났으며, 숫자에 관한 새로운 기법을 배웠고,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숫자, 거리, 및 비율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발전시켰다.

예수는 동생 **야고보**와 놀기를 매우 즐기기 시작했으며, 이 해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게 철자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해에 **예수**는 낙농제품을 주는 대가{代價}로 하프를 교습 받기로 합의했다. 그는 음악적인 모든 것을 남달리 좋아했다. 그는 나중에 젊은 동역자들 가운데서 노래 부르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열한 살이 됐을 때, 그는 능숙한 하프 연주자가 됐고, 비범한 연주 실력과 뛰어난 즉흥곡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무척 좋아했다.

예수가 학교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계속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을 동안, 부모 또는 선생들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난처한 많은 질문을 계속했다. 그는 특히 **팔레스틴**의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다. 또한 그는 **나사렛**과 **요단** 계곡의 온도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그는 지성적이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그치지 않았다.

셋째 남동생 **시몬**이, 같은 해 서기 2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다.

2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의 선생들 가운데 하나인 **나홀**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왔는데, 그는 비슷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가라**의 집을 이미 방문했었다. 그

school. Although Jesus was not an unusual student, he was a diligent pupil and belonged to the more progressive third of the class, doing his work so well that he was excused from attendance one week out of each month. This week he usually spent either with his fisherman uncle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near Magdala or on the farm of another uncle (his mother's brother) five miles south of Nazareth.

123:6.2 (1364.5) Although his mother had become unduly anxious about his health and safety, she gradually became reconciled to these trips away from home. Jesus' uncles and aunts were all very fond of him, and there ensued a lively competition among them to secure his company for these monthly visits throughout this and immediately subsequent years. His first week's sojourn on his uncle's farm (since infancy) was in January of this year; the first week's fishing experience on the Sea of Galilee occurred in the month of May.

123:6.3 (1364.6) About this time Jesus met a teacher of mathematics from Damascus, and learning some new techniques of numbers, he spent much time on mathematics for several years. He developed a keen sense of numbers, distances, and proportions.

123:6.4 (1364.7) Jesus began to enjoy his brother James very much and by the end of this year had begun to teach him the alphabet.

123:6.5 (1364.8) This year Jesus made arrangements to exchange dairy products for lessons on the harp. He had an unusual liking for everything musical. Later on he did much to promote an interest in vocal music among his youthful associates. By the time he was eleven years of age, he was a skillful harpist and greatly enjoyed entertaining both family and friends with his extraordinary interpretations and able improvisations.

123:6.6 (1365.1) While Jesus continued to make enviable progress at school, all did not run smoothly for either parents or teachers. He persisted in asking many embarrassing questions concerning both science and religion, particularly regarding geography and astronomy. He was especially insistent on finding out why there was a dry season and a rainy season in Palestine. Repeatedly he sought the explanation for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emperatures of Nazareth and the Jordan valley. He simply never ceased to ask such intelligent but perplexing questions.

123:6.7 (1365.2) His third brother, Simon, was born on Friday evening, April 14, of this year, A.D. 2.

123:6.8 (1365.3) In February, Nahor, one of the teachers in a Jerusalem academy of the rabbis, came to Nazareth to observe Jesus, having been on a similar mission to Zacharias's home near Jerusalem. He came to Nazareth at the instigation

는 **요한**의 아버지의 부추김을 받아서 **나사렛**에 왔다.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의 솔직함, 그리고 전통에 매이지 않은 태도에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예수**의 이런 태도를 **갈릴리**가 **히브리** 정통 교육과 문화에서 격리돼 있는 탓으로 돌렸고,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서, **유대** 문화의 중심지에서 교육과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언했다. **마리아**는 그의 설득에 거의 동의했으며; 딸아들이 **메시아**, 즉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요셉**은 주저했는데; **예수**가 자라서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런 운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리라는 데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는, **나홀**의 조언을 생각할수록,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더욱 의문스러웠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의견이 달랐으므로, **나홀**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예수**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예수**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요셉** 및 **마리아**와, 또한 이웃의 가장 친한 놀이 친구 **야곱**의 아버지인 석공{石工}과 이 문제를 의논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대답하기를, 부모와 충고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은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선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결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논해” 보기로 결정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에 완전한 확신이 없어서, 차라리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내 외모를 보거나 내 마음을 관찰할 뿐인 낯선 사람들보다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들은 모두 그의 대답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나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예수**가 집을 떠나는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여러 해 지난 다음이었다.

of John's father. While at first he was somewhat shocked by Jesus' frankness and unconventional manner of relating himself to things religious, he attributed it to the remoteness of Galilee from the centers of Hebrew learning and culture and advised Joseph and Mary to allow him to take Jesus back with him to Jerusalem, where he could have the advantages of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center of Jewish culture. Mary was half persuaded to consent; she was convinced her eldest son was to become the Messiah, the Jewish deliverer; Joseph hesitated; he was equally persuaded that Jesus was to grow up to become a man of destiny, but what that destiny would prove to be he was profoundly uncertain. But he never really doubted that his son was to fulfill some great mission on earth. The more he thought about Nahor's advice, the more he questioned the wisdom of the proposed sojourn in Jerusalem.

123:6.9 (1365.4) Because of this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Joseph and Mary, Nahor requested permission to lay the whole matter before Jesus. Jesus listened attentively, talked with Joseph, Mary, and a neighbor, Jacob the stone mason, whose son was his favorite playmate, and then, two days later, reported that since there was such a difference of opinion among his parents and advisers, and since he did not feel compete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such a decision, not feeling strongly one way or the other, in view of the whole situation, he had finally decided to “talk with my Father who is in heaven”; and while he was not perfectly sure about the answer, he rather felt he should remain at home “with my father and mother,” adding, “they who love me so much should be able to do more for me and guide me more safely than strangers who can only view my body and observe my mind but can hardly truly know me.” They all marveled, and Nahor went his way, back to Jerusalem. And it was many years before the subject of Jesus' going away from home again came up for consideration.

제124편. 예수 유년기 후기

⇨ 123

유랜시아 책

12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4편
예수의 유년기 후기

섹션

소개

1. 예수가 아홉 살 되던 해 (서기 3년)
2. 열 살이 되던 해 (서기 4년)
3. 열한 살 되던 해 (서기 5년)
4. 열두 살 되던 해 (서기 6년)
5. 열세 살 되던 해 (서기 7년)
6.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PAPER 124

THE LATER CHILDHOOD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Ninth Year (A.D. 3)
2. The Tenth Year (A.D. 4)
3. The Eleventh Year (A.D. 5)
4. The Twelfth Year (A.D. 6)
5. His Thirteenth Year (A.D. 7)
6. The Journey to Jerusalem

소개

예수가 갈릴리보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기회가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교육의 인도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토록 훌륭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문명화된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계층의 그런 수많은 남녀와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오직 유대 계통의 교육만 받았을 것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방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됐고, 히브리 신학에 대한, 동방, 즉 바빌로니아 시각과, 서방, 즉 헬라 시각이 어떤 상대적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뛰어났고 균형 잡힌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 예수가 아홉 살 되던 해 (서기 3년)

예수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해에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흔히 앓는 어떤 사소한 병을 앓기도 했다.

INTRODUCTION

124:0.1 (1366.1) ALTHOUGH Jesus might have enjoyed a better opportunity for schooling at Alexandria than in Galilee, he could not have had such a splendid environment for working out his own life problems with a minimum of educational guidanc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great advantage of constantly contacting with such a large number of all classes of men and women hailing from every part of the civilized world. Had he remained at Alexandria, his education would have been directed by Jews and along exclusively Jewish lines. At Nazareth he secured an education and received a training which more acceptably prepared him to understand the gentiles, and which gave him a better and more balanced idea of the relative merits of the Eastern, or Babylonian, and the Western, or Hellenic, views of Hebrew theology.

1. JESUS' NINTH YEAR (A.D. 3)

124:1.1 (1366.2) Though it could hardly be said that Jesus was ever seriously ill, he did have some of the minor ailments of childhood this year, along with his brothers and baby sister.

학교 교육은 계속됐고,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주일 가량은 자유로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학생이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이웃 도시로 여행하기, **나사렛** 남쪽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 머물기, 그리고 **막달라**에서 낚시 여행 나가기에, 계속해서 여가 시간을 똑같이 할애했다.

형상, 초상화, 및 그림은 모두 본질적으로 우상이라는 카잔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가 감히 도전하려고 했던 이 해 늦겨울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곧 학교에서 발생했다. **예수**는, 도공의 진흙으로 다양한 물체 만들기뿐 아니라, 풍경화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런 종류는 무엇이든지 **유대인**의 법률로 엄격히 금지됐지만, 그는 이때까지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납할 정도로, 부모의 반대를 곧잘 무마시켜왔다.

그러나 **예수**가 목탄으로 학교 마루에 선생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비교적 뒤쳐진 학생 가운데 하나가 발견하자, 문제가 다시 학교에서 터졌다. 그것이 그대로 있었고, 여러 장로가 그것을 본 후에, 위원회가 **요셉**을 방문하여, 그의 장남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인 아들의 행동에 대해 처음 듣는 불평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쏟아졌던 모든 비난 중에서 가장 심각했다. **예수**는 뒷문 바로 밖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서,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비난에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는 비행으로 취급받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책망 받는 것에 분개했으며; 그래서 그는 앞으로 걸어가, 비난하는 자들 앞에 대담하게 마주 섰다. 장로들은 크게 당황했다. 몇몇 사람은 이 일을 적당히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한 두 사람은 그 소년을 불경스럽게나 아니면 무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요셉**은 당황했고, **마리아**는 화를 냈지만, **예수**는 들어보라고 고집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자기 관점을 용감하게 옹호했으며, 최고의 자제심으로, 이것뿐 아니라 논쟁의 대상인 다른 모든 일에서도 아버지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자 장로들의 위원회는 조용히 떠났다.

마리아는, **예수**가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미심쩍은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에서는 흙으로 모형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하도록 **요셉**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요셉**은 제2 계명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예수**는, 이날 이후로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비슷한 모양도 만들거나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틀렸다는 것도, 본인의 어린 시절의 큰 시련 가운데 하나인 그런 좋아하는 놀이를 포기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다.

6월 하순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다불산** 정

124:1.2 (1366.3) School went on and he was still a favored pupil, having one week each month at liberty, and he continued to divide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trips to neighboring cities with his father, sojourns on his uncle's farm south of Nazareth, and fishing excursions out from Magdala.

124:1.3 (1366.4) The most serious trouble as yet to come up at school occurred in late winter when Jesus dared to challenge the chazan regarding the teaching that all images, pictures, and drawings were idolatrous in nature. Jesus delighted in drawing landscapes as well as in modeling a great variety of objects in potter's clay. Everything of that sort was strictly forbidden by Jewish law, but up to this time he had managed to disarm his parents' objection to such an extent that they had permitted him to continue in these activities.

124:1.4 (1366.5) But trouble was again stirred up at school when one of the more backward pupils discovered Jesus drawing a charcoal picture of the teacher on the floor of the schoolroom. There it was, plain as day, and many of the elders had viewed it before the committee went to call on Joseph to demand that something be done to suppress the lawlessness of his eldest son. And though this was not the first time complaints had come to Joseph and Mary about the doings of their versatile and aggressive child, this was the most serious of all the accusations which had thus far been lodged against him. Jesus listened to the indictment of his artistic efforts for some time, being seated on a large stone just outside the back door. He resented their blaming his father for his alleged misdeeds; so in he marched, fearlessly confronting his accusers. The elders were thrown into confusion. Some were inclined to view the episode humorously, while one or two seemed to think the boy was sacrilegious if not blasphemous. Joseph was nonplused, Mary indignant, but Jesus insisted on being heard. He had his say, courageously defended his viewpoint, and with consummate self-control announced that he would abide by the decision of his father in this as in all other matters controversial. And the committee of elders departed in silence.

124:1.5 (1367.1) Mary endeavored to influence Joseph to permit Jesus to model in clay at home, provided he promised not to carry on any of these questionable activities at school, but Joseph felt impelled to rule that the rabbinic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commandment should prevail. And so Jesus no more drew or modeled the likeness of anything from that day as long as he lived in his father's house. But he was unconvinced of the wrong of what he had done, and to give up such a favorite pastime constituted one of the great trials of his young life.

124:1.6 (1367.2) In the latter part of June, Jesus, in

상에 처음으로 올랐다. 맑은 날씨였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아홉 살 소년에게는, 이것이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를 제외한, 정말로 온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의 둘째 여동생인 **마르다**가 9월 13일 목요일 밤에 태어났다. 한동안 집에 머물렀던 **요셉**은, **마르다**가 태어난 지 3주 지난 후에, 작업장 겸 침실을 집에 덧붙여 짓기 시작했다. **예수**를 위해서 작은 작업대가 만들어졌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장들을 갖게 됐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틈나는 대로 이 작업대에서 일했고, 명에 만드는 일에 상당한 기술자가 됐다.

이 해 겨울과 다음 해는 **나사렛**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 **예수**는 산 위에 덮인 눈을 봤었고, **나사렛**에도 몇 번 눈이 오기도 했지만 땅 위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 해 겨울에 처음으로 얼음을 보게 됐다. 물이,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소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세계와 그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토록 했지만--끓는 주전자에서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었지만; 광범한 우주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의 실제 창조자이자 조직자였던 그 인격체는, 성장 과정의 이 소년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이 정도였다.

나사렛의 기후는 혹독하지 않았다. 1월이 가장 추운 달이었는데, 평균 기온은 화씨 50도 정도였다. 7월과 8월은 가장 더운 달이었고, 평균 기온은 화씨 75도에서 90도까지 변했다. 산으로부터 **요단**과 **사해** 계곡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틴**의 기후는 한대와 열대기후가 두루 분포돼 있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유대인**은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기후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도 오전 열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서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닷바람이 늘 불었다. 그러나 때때로 동쪽 사막으로부터 대단히 뜨거운 바람이 온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기도 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期}가 끝날 무렵인 2월과 3월에 불었다. 우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비가 끊임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틴**에는 여름과 겨울, 건기{乾期}와 우기 두 계절만 있었다. 1월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4월말이 되면 온 땅은 하나의 방대한 꽃밭이었다.

이 해 5월에, **예수**는 삼촌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곡물 거두는 일을 도왔다. 열세 살이 되기 전에, 그는 쇠 다루는 일을 제외하고, **나사렛** 주변에 있는 남녀가 종사하는 일에 대해 실질적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됐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몇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하기도 했다.

company with his father, first climbed to the summit of Mount Tabor. It was a clear day and the view was superb. It seemed to this nine-year-old lad that he had really gazed upon the entire world excepting India, Africa, and Rome.

124:1.7 (1367.3) Jesus' second sister, Martha, was born Thursday night, September 13. Three weeks after the coming of Martha, Joseph, who was home for awhile, started the building of an addition to their house, a combined workshop and bedroom. A small workbench was built for Jesus, and for the first time he possessed tools of his own. At odd times for many years he worked at this bench and became highly expert in the making of yokes.

124:1.8 (1367.4) This winter and the next were the coldest in Nazareth for many decades. Jesus had seen snow on the mountains, and several times it had fallen in Nazareth, remaining on the ground only a short time; but not until this winter had he seen ice. The fact that water could be had as a solid, a liquid, and a vapor — he had long pondered over the escaping steam from the boiling pots — caused the lad to think a great deal about the physical world and its constitution; and yet the personality embodied in this growing youth was all this while the actual creator and organizer of all these things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124:1.9 (1367.5) The climate of Nazareth was not severe. January was the coldest month, the temperature averaging around 50° F. During July and August, the hottest months, the temperature would vary from 75° to 90° F. From the mountains to the Jordan and the Dead Sea valley the climate of Palestine ranged from the frigid to the torrid. And so, in a way, the Jews were prepared to live in about any and all of the world's varying climates.

124:1.10 (1367.6) Even during the warmest summer months a cool sea breeze usually blew from the west from 10:00 A.M. until about 10:00 P.M. But every now and then terrific hot winds from the eastern desert would blow across all Palestine. These hot blasts usually came in February and March, near the end of the rainy season. In those days the rain fell in refreshing showers from November to April, but it did not rain steadily. There were only two seasons in Palestine, summer and winter, the dry and rainy seasons. In January the flowers began to bloom, and by the end of April the whole land was one vast flower garden.

124:1.11 (1367.7) In May of this year, on his uncle's farm, Jesus for the first time helped with the harvest of the grain. Before he was thirteen, he had managed to find out something about practically everything that men and women worked at around Nazareth except metal working, and he spent several months in a smith's shop when old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예수는 작업이 없거나 대상 행렬이 드물 때,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 엔도르, 나인** 등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차례 취미 여행 또는 출장을 다녔다.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3마일 남짓 떨어져 있는, **세포리**에 자주 갔고, 그곳은 기원전 4년부터 서기 25년까지 **갈릴리**의 수도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거처 가운데 하나였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다.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함으로써 가족을 더 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때부터는 부모마저도 그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독창적인 사색가였고, 능숙한 선생이었다. 그는 소위 “구전(口傳)된 율법”과 부단히 충돌했지만, 언제나 가족의 규율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도 잘 지냈으나, 그들 정신의 느린_반응 때문에 자주 실망하곤 했다. 열 살이 되기 전에, 그는 일곱 명의 소년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들은 성인으로서 --육체적, 지적, 및 종교적-- 학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었다. **예수**는 많은 새로운 놀이와 개선된 다양한 육체적 오락 방법을 이 소년들에게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

124:1.12 (1368.1) When work and caravan travel were slack, Jesus made many trips with his father on pleasure or business to near-by Cana, Endor, and Nain. Even as a lad he frequently visited Sepphoris, only a little over three miles from Nazareth to the northwest, and from 4 B.C. to about A.D. 25 the capital of Galilee and one of the residences of Herod Antipas.

124:1.13 (1368.2) Jesus continued to grow physically, intellectu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His trips away from home did much to give him a better and more generous understanding of his own family, and by this time even his parents were beginning to learn from him as well as to teach him. Jesus was an original thinker and a skillful teacher, even in his youth. He was in constant collision with the so-called “oral law,” but he always sought to adapt himself to the practices of his family. He got along fairly well with the children of his age, but he often grew discouraged with their slow-acting minds. Before he was ten years old, he had become the leader of a group of seven lads who formed themselves into a society for promoting the acquirements of manhood — physical, intellectual, and religious. Among these boys Jesus succeeded in introducing many new games and various improved methods of physical recreation.

2. 열 살이 되던 해 (서기 4년)

7월 5일, 첫 **안식일**에, 아버지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던 **예수**는, 자기 생애의 사명의 색다른 본질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느낌과 관념을 처음으로 표현했다. **요셉**은 아들의 비상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거의 대꾸하지 않았으며;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는 어머니와 좀 더 오랫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소년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역시 어떤 정보도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 인격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 이뤄야 할 사명의 특성에 관해서, 자신의 의식 속에서 점점 증가되는 이 계시에 대해 부모에게 다시 언급한 것은 거의 2년이 지난 후였다.

8월에 **예수**는 회당에 소속된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학교에서 질문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나사렛** 온 동네에 다소간의 소동이 점점 더 일어나게 했다. 그의 부모는 걱정스럽게 하는 그의 질문을 그치도록 하기에 지쳤으며, 담임선생은 그 소년의 호기심과 통찰력, 그리고 지식을 향한 열망에 크게 흥미를 갖게 됐다.

예수의 놀이동무들은 그의 행동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는 어떤 면

2. THE TENTH YEAR (A.D. 4)

124:2.1 (1368.3) It was the fifth of July, the first Sabbath of the month, when Jesus, while strolling through the countryside with his father, first gave expression to feelings and ideas which indicated that he was becoming self-conscious of the unusual nature of his life mission. Joseph listened attentively to the momentous words of his son but made few comments; he volunteered no information. The next day Jesus had a similar but longer talk with his mother. Mary likewise listened to the pronouncements of the lad, but neither did she volunteer any information. It was almost two years before Jesus again spoke to his parents concerning this increasing revelation within his own consciousness regarding the nature of his personality and the character of his mission on earth.

124:2.2 (1368.4) He entered the advanced school of the synagogue in August. At school he was constantly creating trouble by the questions he persisted in asking. Increasingly he kept all Nazareth in more or less of a hubbub. His parents were loath to forbid his asking these disquieting questions, and his chief teacher was greatly intrigued by the lad's curiosity, insight, and hunger for knowledge.

124:2.3 (1368.5) Jesus' playmates saw nothing supernatural in his conduct; in most ways he was

에서든지 그들과 똑같았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균이상이었으나, 아주 특출나지는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자기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질문했다.

그의 가장 특이하고 눈에 띄는 특징은, 아마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잘_발육된 아이였으므로, 자신이 불의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모독을 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놀이 동무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는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웃 친구 **야곱** 덕분에, 이런 특징으로 인한 곤란을 크게 겪지 않았다. 그는 **요셉**의 사업상 동료인 석공(石工)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예수**를 무척 존경했고, **예수**가 몸으로 싸우기 싫어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려는 아이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를 자기 일처럼 여겼다. 나이 많고 거친 아이들이 **예수**가 온순하다는 평판을 믿고,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그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가 돼있는 석공의 아들 **야곱**의 재빠르고 정확한 반격에, 그들이 오히려 항상 당하곤 했다.

당시의 또래들보다 비교적 높은 이상을 지닌 **예수**는, **나사렛** 아이들의 지도자로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의 또래 동료들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공정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분별 있는 동정심에 가까운, 드물고도 사려 깊은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해부터 그는 연장자들과 어울리기를 현저히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연상(年上)의 사람들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사항들에 대해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그의 깊은 추리력과 예리한 관찰력에 어린 친구들이 매료돼서 언제든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기까지, **예수**는 자기보다 나이 많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그의 부모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같은 해 말쯤에, 그는 삼촌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두 달 동안 고기 잡는 체험을 했고, 아주 훌륭히 해냈다. 그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능숙한 어부가 돼있었다.

그의 육체적 성장은 계속됐으며;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고 특전을 누리는 학생이었으며; 동생 **야고보**보다 세 살 반이나 많은 우월성에도, 어린 동생들과 집에서 아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는 몇몇 우둔한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건방지다는 말, 즉 아이답지 않고 겸손한 구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사렛**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기 또래의 놀이 활동을, 더 진지하고 사려 깊은 경로로 유도해 보려는 경향을 점

altogether like themselves. His interest in study was somewhat above the average but not wholly unusual. He did ask more questions at school than others in his class.

124:2.4 (1368.6) Perhaps his most unusual and outstanding trait was his unwillingness to fight for his rights. Since he was such a well-developed lad for his age, it seemed strange to his playfellows that he was disinclined to defend himself even from injustice or when subjected to personal abuse. As it happened, he did not suffer much on account of this trait because of the friendship of Jacob, a neighbor boy, who was one year older. He was the son of the stone mason, a business associate of Joseph. Jacob was a great admirer of Jesus and made it his business to see that no one was permitted to impose upon Jesus because of his aversion to physical combat. Several times older and uncouth youths attacked Jesus, relying upon his reputed docility, but they always suffered swift and certain retribution at the hands of his self-appointed champion and ever-ready defender, Jacob the stone mason's son.

124:2.5 (1369.1) Jesus was the generally accepted leader of the Nazareth lads who stood for the higher ideals of their day and generation. He was really loved by his youthful associates, not only because he was fair, but also because he possessed a rare and understanding sympathy that betokened love and bordered on discreet compassion.

124:2.6 (1369.2) This year he began to show a marked preference for the company of older persons. He delighted in talking over things cultural, educational,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with older minds, and his depth of reasoning and keenness of observation so charmed his adult associates that they were always more than willing to visit with him. Until he became responsible for the support of the home, his parents were constantly seeking to influence him to associate with those of his own age, or more nearly his age, rather than with older and better-informed individuals for whom he evinced such a preference.

124:2.7 (1369.3) Late this year he had a fishing experience of two months with his uncle on the Sea of Galilee, and he was very successful. Before attaining manhood, he had become an expert fisherman.

124:2.8 (1369.4) His physical development continued; he was an advanced and privileged pupil at school; he got along fairly well at home with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having the advantage of being three and one-half years older than the oldest of the other children. He was well thought of in Nazareth except by the parents of some of the duller children, who often spoke of Jesus as being too pert, as lacking in proper humility and youthful

점 더 나타냈다. 그는 타고난 선생이었으며,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 그런 역할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요셉은, 산업이나 무역에 비해서 농업이 유리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예수**에게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갈릴리**는 **유대지방**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으며, 생활비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지방**보다 4분의 1 정도면 충분했다. 그곳은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과, 날로 번창하는 산업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5천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200개 이상이었고, 1만 5천 명 넘는 도시도 30개 이상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의 어업{漁業} 현장을 관찰하러 왔을 때, **예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에 가까이 종사한 영향으로 목수가 됐고, 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력이,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는 종교 선생이 되는 최종 선택을 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3. 열한 살 되던 해 (서기 5년)

이 해에, 소년은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여러 차례 여행했지만, 또한 삼촌의 농장도 자주 방문했고, 때로는 **마달라**로 가서, 그 도시 근처에 본거지를 둔 삼촌과 함께 고기잡이도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어떤 특별한 편애{偏愛}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가 언약의 아이, 즉 운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설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졌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매우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신했다. 아주 미약한 정도였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몇 번 있을 때마다, 소년은 이런 특별한 배려를 즉각 거절했다.

예수는, 대상{隊商}에게 필수품을 파는 상점에서 제법 시간을 보냈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기이하게 보이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 해는, 그가 무척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부터 이 소년의 생애에는 많은 어려움과 책임이 급속도로 배가{倍加}됐다.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유다**가 태어났다. 이 일곱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 **마리아**가 몇 주 동안 매우 심한 병을 앓았으므로, **요셉**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과 어머니의 심각한 병으

reserve. He manifested a growing tendency to direct the play activities of his youthful associates into more serious and thoughtful channels. He was a born teacher and simply could not refrain from so functioning, even when supposedly engaged in play.

124:2.9 (1369.5) Joseph early began to instruct Jesus in the diverse means of gaining a livelihood, explaining the advantages of agriculture over industry and trade. Galilee was a more beautiful and prosperous district than Judea, and it cost only about one fourth as much to live there as in Jerusalem and Judea. It was a province of agricultural villages and thriving industrial cities, containing more than two hundred towns of over five thousand population and thirty of over fifteen thousand.

124:2.10 (1369.6) When on his first trip with his father to observe the fishing industry on the lake of Galilee, Jesus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o become a fisherman; but close association with his father's vocation later on influenced him to become a carpenter, while still later a combination of influences led him to the final choice of becoming a religious teacher of a new order.

3. THE ELEVENTH YEAR (A.D. 5)

124:3.1 (1369.7) Throughout this year the lad continued to make trips away from home with his father, but he also frequently visited his uncle's farm and occasionally went over to Magdala to engage in fishing with the uncle who made his headquarters near that city.

124:3.2 (1369.8) Joseph and Mary were often tempted to show some special favoritism for Jesus or otherwise to betray their knowledge that he was a child of promise, a son of destiny. But both of his parents were extraordinarily wise and sagacious in all these matters. The few times they did in any manner exhibit any preference for him, even in the slightest degree, the lad was quick to refuse all such special consideration.

124:3.3 (1370.1) Jesus spent considerable time at the caravan supply shop, and by conversing with the traveler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he acquired a store of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affairs that was amazing, considering his age. This was the last year in which he enjoyed much free play and youthful joyousness. From this time on difficulties and responsibilities rapidly multiplied in the life of this youth.

124:3.4 (1370.2) On Wednesday evening, June 24, A.D. 5, Jude was born. Complications attended the birth of this, the seventh child. Mary was so very ill for several weeks that Joseph remained at home. Jesus was very much occupied with errands for his father and with many duties

로 인해 많은 일로 매우 바빴다. 이 소년은, 다시는 어린 시절의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팠던 때부터--곧 그가 열한 살이 되기 직전부터--만아들로서 의무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으로 이런 무거운 짐이 부여되는 시기보다, 만(滿) 1년 내지 2년 전에 이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주 하루 저녁은 카잔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가 **히브리** 성서를 숙지하도록 도왔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의 발전에 매우 흥미를 가졌으며; 그런 까닭에 다방면으로 그를 기꺼이 도왔다. 이 **유대인** 교육가는 자라나는 이 정신에게 큰 영향을 줬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박식한 랍비들 밑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한 온갖 권고에 대해서는 **예수**가 왜 그토록 냉담한지,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5월 중순경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데가볼리** 지방에서 주요 **그리스** 도시이며, **벨_산** 지역인 고대 **히브리**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로 사업차 여행을 했다. 여행 중에 **요셉**은 **예수**에게 **사울 왕**과 **필리스틴**,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험난한 역사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예수**는 소위 이방 도시의 깨끗한 모습과 잘 정돈된 배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천극장을 보고 놀랐으며,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들을 보고 감탄했다. **요셉**은 아이가 이것들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에 당혹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칭찬함으로써, **예수**의 이런 감정을 바꿔 보려고 했다. **예수**는 이미 **나사렛**의 언덕에서 이 **그리스** 도시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본 적이 종종 있었고, 그것을 짓기 위한 거대한 토목공사와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에 대해 여러 번 질문했었지만, 아버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 항상 대답을 피하려고 했다. 그들은 이제 이 이방도시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요셉**은 **예수**의 질문을 더 이상 잠잠게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이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 연례적으로 대중 앞에서 서로 육체적인 용맹을 뽐내고 경쟁하는 시합이, **스키토폴리스**의 원형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는 아버지께 그 시합을 보자고 졸랐으며, 너무 끈질기게 우겼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소년은 시합에 몹시 감동됐고, 육체적인 발달과 경기 솜씨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됐다. **요셉**은, “이방”의 허영심으로 들떠 있는 이런 시범경기를 아들이 열광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시합이 끝난 후에, **예수**가 그것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건전한 야외 육체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요셉**은 이런 활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 **예수**와 오랫동안

occasioned by his mother's serious illness. Never again did this youth find it possible to return to the childlike attitude of his earlier years. From the time of his mother's illness — just before he was eleven years old — he was compelled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rst-born son and to do all this one or two full years before these burdens should normally have fallen on his shoulders.

124:3.5 (1370.3) The chazan spent one evening each week with Jesus, helping him to master the Hebrew scriptures. He was greatly interested in the progress of his promising pupil; therefore was he willing to assist him in many ways. This Jewish pedagogue exerted a great influence upon this growing mind, but he was never able to comprehend why Jesus was so indifferent to all his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spects of going to Jerusalem to continue his education under the learned rabbis.

124:3.6 (1370.4) About the middle of May the lad accompanied his father on a business trip to Scythopolis, the chief Greek city of the Decapolis, the ancient Hebrew city of Beth-shean. On the way Joseph recounted much of the olden history of King Saul, the Philistines, and the subsequent events of Israel's turbulent history. Jesus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clean appearance and well-ordered arrangement of this so-called heathen city. He marveled at the open-air theater and admired the beautiful marble temple dedicated to the worship of the “heathen” gods. Joseph was much perturbed by the lad's enthusiasm and sought to counteract these favorable impressions by extolling the beauty and grandeur of the Jewish temple at Jerusalem. Jesus had often gazed curiously upon this magnificent Greek city from the hill of Nazareth and had many times inquired about its extensive public works and ornate buildings, but his father had always sought to avoid answering these questions. Now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he beauties of this gentile city, and Joseph could not gracefully ignore Jesus' inquiries.

124:3.7 (1370.5) It so happened that just at this time the annual competitive games and public demonstrations of physical prowess between the Greek cities of the Decapolis were in progress at the Scythopolis amphitheater, and Jesus was insistent that his father take him to see the games, and he was so insistent that Joseph hesitated to deny him. The boy was thrilled with the games and entered most heartily into the spirit of the demonstration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athletic skill. Joseph was inexpressibly shocked to observe his son's enthusiasm as he beheld these exhibitions of “heathen” vaingloriousness. After the games were finished, Joseph received the surprise of his life when he heard Jesus express his approval of them and suggest that it would be good for the young men of Nazareth if they could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나, 아이가 설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내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됐는데, 그날 밤 여관에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아직까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잊고 있었던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사렛**에 원형극장을 짓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요셉**은 판아들이 이렇게 비-**유대적** 감상에 젖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의 온순한 성품을 잊은 채 **예수**의 어깨를 잡고 화난 목소리로, “아들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런 악한 생각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예수**는 아버지가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깜짝 놀랐으며; 전에는 아버지가 화내는 것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년이 시험이나 다른 운동 경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나중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식으로 지은 원형극장을 봤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인지 배우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생애 동안 건전한 오락 개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에 도입해 보려고 시도했으며, **유대**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두명의 사도를 위한 후기(後期) 정규 활동 계획표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열한 살이던 이 해가 끝날 무렵까지, **예수**는 생기 있고, 잘-발육되고, 적당히 유머 있고, 상당히 밝은 심성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 후부터는 깊은 명상과 진지한 묵상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召命)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한돼 있지 않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4. 열두 살 되던 해 (서기 6년)

이 해는 **예수**의 생애에서 다사한 해였다. 그는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했고, 자연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점점 더 공부하게 됐다. 그는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같은 해에, 그는 또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 가정 안에서 비밀을 지키는 지혜를 터득하게 됐다. 그는 자

be thus benefited by wholesome outdoor physical activities. Joseph talked earnestly and long with Jesus concerning the evil nature of such practices, but he well knew that the lad was unconvinced.

124:3.8 (1371.1) The only time Jesus ever saw his father angry with him was that night in their room at the inn when, in the course of their discussions, the boy so far forgot the trends of Jewish thought as to suggest that they go back home and work for the building of an amphitheater at Nazareth. When Joseph heard his first-born son express such un-Jewish sentiments, he forgot his usual calm demeanor and, seizing Jesus by the shoulder, angrily exclaimed, “My son, never again let me hear you give utterance to such an evil thought as long as you live.” Jesus was startled by his father’s display of emotion; he had never before been made to feel the personal sting of his father’s indignation and was astonished and shocked beyond expression. He only replied, “Very well, my father, it shall be so.” And never again did the boy even in the slightest manner allude to the games and other athletic activities of the Greeks as long as his father lived.

124:3.9 (1371.2) Later on, Jesus saw the Greek amphitheater at Jerusalem and learned how hateful such things were from the Jewish point of view. Nevertheless, throughout his life he endeavored to introduce the idea of wholesome recreation into his personal plans and, as far as Jewish practice would permit, into the later program of regular activities for his twelve apostles.

124:3.10 (1371.3) At the end of this eleventh year Jesus was a vigorous, well-developed, moderately humorous, and fairly lighthearted youth, but from this year on he was more and more given to peculiar seasons of profound meditation and serious contemplation. He was much given to thinking about how he was to carry out his obligations to his family and at the same time be obedient to the call of his mission to the world; already he had conceived that his ministry was not to be limited to the betterment of the Jewish people.

4. THE TWELFTH YEAR (A.D. 6)

124:4.1 (1371.4) This was an eventful year in Jesus’ life. He continued to make progress at school and was indefatigable in his study of nature, while increasingly he prosecuted his study of the methods whereby men make a living. He began doing regular work in the home carpenter shop and was permitted to manage his own earnings, a very unusual arrangement to obtain in a Jewish family. This year he also learned the wisdom of keeping such matters a secret in the family. He

신이 전에 마을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했던 방식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 따라서 그는 동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일을 숨기면서 점점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돼갔다.

이 해 동안 내내, 그는 자기 사명의 본질을 실제로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성장한 그의 인간 정신으로는, 자신의 이중적 본성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가 단일 인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인격과 관련된 본질의 구성 요소들이 이중적으로 기원됐음을, 그의 의식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그는 형제자매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점점 더 재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특별히 배려했으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좀 더 설명하면: 그는 **야고보**, **미리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더 어린 두 동생인 **아모스** 및 **룻**과 친하게 지냈다. 그는 언제나 **마르다**와 잘 지냈다. 그가 집에서 가졌던 분란은 주로 **요셉** 및 **유다**와의 충돌에서 야기됐는데, 특히 **유다** 때문이었다.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복합적으로 갖춘, 전례 없는 이런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지는 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괴로운 체험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크게 인정받을 만 했다. **예수**의 부모는, 만아들 속에 초인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있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됐지만, 이 약속의 아이가 정말로, 진실로, 이 지방우주의 사물과 존재를 창조한 실제 창조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필사자 육체 속에 육신화 한 **우주 창조주**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음악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집안에서는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 그의 사명의 본질에 관해,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예민하게 알아챈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부모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깊이 잠든 줄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대화를 종종 듣기도 했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관점을 따르게 됐고,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일생을 통해 체험해야 할 문제들에서, 자신의 지시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상처를 받게 돼있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이해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마리아**는 **예수**의 사명의 의미심장함에 대해서 점점 더 납득하지 못하게 됐고, 훌륭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충애하는 아들이 자신의 맹신적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점점 더 상처받게 됐다.

was becoming conscious of the way in which he had caused trouble in the village, and henceforth he became increasingly discreet in concealing everything which might cause him to be regarded as different from his fellows.

124:4.2 (1371.5) Throughout this year he experienced many seasons of uncertainty, if not actual doubt,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His naturally developing human mind did not yet fully grasp the reality of his dual nature. The fact that he had a single personality rendered it difficult for his consciousness to recognize the double origin of those factors which composed the nature associated with that selfsame personality.

124:4.3 (1371.6) From this time on he became more successful in getting along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He was increasingly tactful, always compassionate and considerate of their welfare and happiness, and enjoyed good relations with them up to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To be more explicit: He got along with James, Miriam, and the two younger (as yet unborn) children, Amos and Ruth, most excellently. He always got along with Martha fairly well. What trouble he had at home largely arose out of friction with Joseph and Jude, particularly the latter.

124:4.4 (1372.1) It was a trying experience for Joseph and Mary to undertake the rearing of this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divinity and humanity, and they deserve great credit for so faithfully and successfully discharging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Increasingly Jesus' parents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superhuman resident within this eldest son, but they never even faintly dreamed that this son of promise was indeed and in truth the actual creator of this local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Joseph and Mary lived and died without ever learning that their son Jesus really was the Universe Creator incarnate in mortal flesh.

124:4.5 (1372.2) This year Jesus paid more attention than ever to music, and he continued to teach the home school for his brothers and sisters. It was at about this time that the lad became keenly consciou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ewpoints of Joseph and Mary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He pondered much over his parents' differing opinions, often hearing their discussions when they thought he was sound asleep. More and more he inclined to the view of his father, so that his mother was destined to be hurt by the realization that her son was gradually rejecting her guidance in matters having to do with his life career. And, as the years passed, this breach of understanding widened. Less and less did Mar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Jesus' mission, and increasingly was this good mother hurt by the failure of her favorite son to fulfill her fond expectations.

요셉은 예수의 사명의 영적 본질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른 이유로 인해, 불운하게도 **요셉은 예수**의 이 세상 증여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충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해, 즉 **예수**가 열두 살 됐을 때, 그는 문설주에 못으로 박아 놓은 양피지 문서에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손끝을 대고, 양피지를 만진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 관습에 대해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사람들이 이런 제례식의 일부분으로, “**주**께서 우리가 드나드는 것을 이 제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리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에 **예수**에게 아무것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 번 가르치면서, 그런 작품은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예수**는, 그들이 형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을 왜 금지시키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높은 개념을 갖고 있었으므로, 문설주의 양피지 문서에 습관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에도 근본적으로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지적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의 이런 항의를 받은 후에 문설주에서 양피지 문서를 제거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는 가족 공동 기도 및 다른 여러 관례와 같은 종교 형식의 습관을 많이 변경시켰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일은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당이, **나사렛**의 유명한 선생 **호세** 같은 개방적 학풍을 따르는 랍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해와 그 후 2년 동안, 종교적 관례나 사회적 풍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부모의 이미 확립된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예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체험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는 충동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의 경고 사이의 충돌로 인해 혼란돼 있었으며; 그의 가장 심한 갈등은, 어린 마음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두 가지 큰 명령 때문이었다. 하나는, “진실과 의(義)에 대한 너 자신의 가장 숭고한 신념이 주는 명령에 충실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네게 생명을 줬고 길러줬으니,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충실해야 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때 순간마다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기피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충성심, 공정성, 그리고 아량과 사랑에 바탕을 둔 집단적 일체감의 뛰어난 개념 속으로, 개인적 신념과 가족에 대한 책무를 더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족감을 성취했다.

124:4.6 (1372.3) Joseph entertained a growing belief in the spiritual nature of Jesus' mission. And but for other and more important reasons it does seem unfortunate that he could not have lived to see the fulfillment of his concept of Jesus' bestowal on earth.

124:4.7 (1372.4) During his last year at school,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Jesus remonstrated with his father about the Jewish custom of touching the bit of parchment nailed upon the doorpost each time on going into, or coming out of, the house and then kissing the finger that touched the parchment. As a part of this ritual it was customary to say, "The Lord shall preserve our going out and our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even forevermore." Joseph and Mary had repeatedly instructed Jesus as to the reasons for not making images or drawing pictures, explaining that such creations might be used for idolatrous purposes. Though Jesus failed fully to grasp their proscriptions against images and pictures, he possessed a high concept of consistency and therefore pointed out to his father the essentially idolatrous nature of this habitual obeisance to the doorpost parchment. And Joseph removed the parchment after Jesus had thus remonstrated with him.

124:4.8 (1372.5) As time passed, Jesus did much to modify their practice of religious forms, such as the family prayers and other customs. And it was possible to do many such things at Nazareth, for its synagogue was under the influence of a liberal school of rabbis, exemplified by the renowned Nazareth teacher, Jose.

124:4.9 (1372.6) Throughout this and the two following years Jesus suffered great mental distress as the result of his constant effort to adjust his personal views of religious practices and social amenities to the established beliefs of his parents. He was distraught by the conflict between the urge to be loyal to his own convictions and the conscientious admonition of dutiful submission to his parents; his supreme conflict was between two great commands which were uppermost in his youthful mind. The one was: "Be loyal to the dictates of your highest conviction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he other wa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for they have given you life and the nurture thereof." However, he never shirked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the necessary daily adjustments between these realms of loyalty to one's personal convictions and duty toward one's family, and he achieved the satisfaction of effecting an increasingly harmonious blending of personal convictions and family obligations into a masterful concept of group solidarity based upon loyalty, fairness, tolerance, and love.

5. 열세 살 되던 해 (서기 7년)

이 해에, **나사렛**의 소년은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를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의 다른 특색들도 곧 어른의 상태에 속하는 증거들을 나타냈다.

서기 7년 1월 9일 일요일 밤에, 남동생 **아모스**가 태어났다. **유다**는 아직 두 살이 안 됐고, 여동생 **룻**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아버지가 사고로 그다음 해에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예수**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은, 꽤 큰 가족이 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2월 중순쯤에, **예수**는 자기가 숙명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계몽시키고, **하나님**을 계시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인간적으로 확신하게 됐다. 원대한 계획과 함께 중대한 결정들이, **나사렛**에 사는 보통 **유대인** 소년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한 이 목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온 **네바돈**의 지성 생명체는 눈을 잃고 경탄하면서 지켜봤다.

그 주(週)의 첫날인 서기 7년 3월 20일에, **예수**는 **나사렛** 회당과 연계돼 있는 지역 학교 훈련 과정을 졸업했다. 포부를 지닌 모든 **유대인** 가정 생활에서 이날은 가슴 벅찬 날이었으며, 그날은 바로 맏아들이 “계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主)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첫 아들, 즉 “**지고자(至高者)**의 아이”인 동시에 이 세상 전체의 주의 종으로서 선포되는 날이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요셉**은 이 기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 공공건물을 짓는 책임을 맡고 있던 **세포리**에서 돌아왔다. **예수**를 가르친 선생은, 주의 깊고 부지런한 제자가 눈에 떨만한 어떤 경력, 즉 어떤 출중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다. **예수**의 순응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에도, 장로들은 이 소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명한 **히브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할 계획을 이미 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계획을 토론하는 것을 때때로 들으면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점점 더 확고히 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꿈도 꾸지 못했으며, 그것은 당시에 어머니와 자신뿐 아니라, 다섯 명의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부양하고 이끌어 갈 책임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을 포기하도록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이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예수**는 아버지 **요셉**에게 부과됐던 것보다 더 힘들고 긴 체함을 했으며, 자신이 나중에 스스로 부과

5. HIS THIRTEENTH YEAR (A.D. 7)

124:5.1 (1373.1) In this year the lad of Nazareth passed from boyhood to the beginning of young manhood; his voice began to change, and other features of mind and body gave evidence of the oncoming status of manhood.

124:5.2 (1373.2) On Sunday night, January 9, A.D. 7, his baby brother, Amos, was born. Jude was not yet two years of age, and the baby sister, Ruth, was yet to come; so it may be seen that Jesus had a sizable family of small children left to his watchcare when his father met his accidental death the following year.

124:5.3 (1373.3) It was about the middle of February that Jesus became humanly assured that he was destined to perform a mission on earth for the enlightenment of man and the revelation of God. Momentous decisions, coupled with far-reaching plans, were formulating in the mind of this youth, who was, to outward appearances, an average Jewish lad of Nazareth. The intelligent life of all Nebadon looked on with fascination and amazement as all this began to unfold in the thinking and acting of the now adolescent carpenter's son.

124:5.4 (1373.4)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ch 20, A.D. 7, Jesus graduated from the course of training in the local school connected with the Nazareth synagogue. This was a great day in the life of any ambitious Jewish family, the day when the first-born son was pronounced a “son of the commandment” and the ransomed first-born of the Lord God of Israel, a “child of the Most High” and serv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124:5.5 (1373.5) Friday of the week before, Joseph had come over from Sepphoris, where he was in charge of the work on a new public building, to be present on this glad occasion. Jesus' teacher confidently believed that his alert and diligent pupil was destined to some outstanding career, some distinguished mission. The elders, notwithstanding all their trouble with Jesus' nonconformist tendencies, were very proud of the lad and had already begun laying plans which would enable him to go to Jerusalem to continue his education in the renowned Hebrew academies.

124:5.6 (1373.6) As Jesus heard these plans discussed from time to time, he became increasingly sure that he would never go to Jerusalem to study with the rabbis. But he little dreamed of the tragedy, so soon to occur, which would insure the abandonment of all such plans by causing him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upport and direction of a large family, presently to consist of five brothers and three sisters as well as his mother and himself. Jesus had a larger and longer experience rearing this family than was

한 기준, 즉: 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치고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당하게 된 이 가족--곧 자기 가족--에게, 현명하고 참용성 있고 이해심 있는 효과적인 선생인 동시에 만아들이 되기에 적합했다.

6.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이제 청년기의 문턱에 이르렀고 회당 학교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예수**는, **유월절** 기념식에 처음 참여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 해의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에 있었다. 여행에 동행할 (10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4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지만, **제즈리엘**에 당도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쪽으로 길을 바꿔서 **길보아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요셉**과 그 가족은, **아굽**의 우물과 **베델**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었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요단**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

대단히 무서워했던 **아켈라오**가 이미 물러났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 **헤롯** 1세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났고, **나사렛**의 이 무명의 아이가 그 사건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제즈리엘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한 후에, 곧 왼편에 있는 고대{古代}의 마을 **수넬**을 지나게 됐고, **예수**는,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 이야기와, **엘리사**가 여기서 행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제즈리엘**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착취자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길보아산**을 지나갈 때, 그들은 이 산 언덕에서 죽은 **사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다윗 왕** 및 이 역사적 장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했다.

길보아산 밑을 돌아가면서, 순례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그리스** 도시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이 이방도시의 대리석 건축물들을 바라봤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이로써 자신을 더럽히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 축제의 엄숙하고 신성시되는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가 **스키토폴리스**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들의 언쟁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ccorded to Joseph, his father; and he did measure up to the standard which he subsequently set for himself: to become a wise, patient, understanding, and effective teacher and eldest brother to this family — his family — so suddenly sorrow-stricken and so unexpectedly bereaved.

6. THE JOURNEY TO JERUSALEM

124:6.1 (1374.1) Jesus, having now reached the threshold of young manhood and having been formally graduated from the synagogue schools, was qualified to proceed to Jerusalem with his parents to participate with them in the celebration of his first Passover. The Passover feast of this year fell on Saturday, April 9, A.D. 7. A considerable company (103) made ready to depart from Nazareth early Monday morning, April 4, for Jerusalem. They journeyed south toward Samaria, but on reaching Jezreel, they turned east, going around Mount Gilboa into the Jordan valley in order to avoid passing through Samaria. Joseph and his family would have enjoyed going down through Samaria by way of Jacob's well and Bethel, but since the Jews disliked to deal with the Samaritans, they decided to go with their neighbors by way of the Jordan valley.

124:6.2 (1374.2) The much-dreaded Archelaus had been deposed, and they had little to fear in taking Jesus to Jerusalem. Twelve years had passed since the first Herod had sought to destroy the babe of Bethlehem, and no one would now think of associating that affair with this obscure lad of Nazareth.

124:6.3 (1374.3) Before reaching the Jezreel junction, and as they journeyed on, very soon, on the left, they passed the ancient village of Shunem, and Jesus heard again about the most beautiful maiden of all Israel who once lived there and also about the wonderful works Elisha performed there. In passing by Jezreel, Jesus' parents recounted the doings of Ahab and Jezebel and the exploits of Jehu. In passing around Mount Gilboa, they talked much about Saul, who took his life on the slopes of this mountain, King David, and the associations of this historic spot.

124:6.4 (1374.4) As they rounded the base of Gilboa, the pilgrims could see the Greek city of Scythopolis on the right. They gazed upon the marble structures from a distance but went not near the gentile city lest they so defile themselves that they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forthcoming solemn and sacred ceremonies of the Passover at Jerusalem. Mary could not understand why neither Joseph nor Jesus would speak of Scythopolis. She did not know about their controversy of the previous year as they had never

길은 이제 곧장 열대성 기후의 **요단** 계곡으로 향했으며, **예수**는, **사해**(死海)로 흘러 내려가면서 반짝거리고 잔잔한 시냇물과 함께, 굽어져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요단** 지역을 곧 감탄하면서 바라보게 됐다. 그들은 열대 기후의 이 계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는 겉옷을 벗었고, 북쪽으로 멀리 서있는 눈 덮인 웅장한 모습의 **헤르몬 산**이, 역사적인 이 계곡을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만발한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협죽도(夾竹桃)나무와 곡물이 맺힌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즐겼다. 그들은 **스키토폴리스** 반대편으로부터 세 시간 남짓 여행한 후에, 넘쳐흐르는 어느 샘에 도착했고, 멀리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서 하룻밤 지냈다.

여행을 시작한지 둘째 날에, 그들은 **압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지났고, 강이 있는 이 계곡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미디안족속**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땅을 차지하려 했던, **기드온**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날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사르타바산** 아래 부근에서 하루 묵었으며, 이 산 정상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가졌고, 목 졸라 죽인 두 아들이 매장된 곳이었다.

셋째 날에,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마을을 지나갔고, 훌륭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될 무렵에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했고, 다음 날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날 저녁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고대 **여리고** 지역으로 1마일 반을 걸어갔으며, 그곳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따온 **예슈아**가 유명한 업적을 이룩한 장소였다.

여행을 떠난 지 넷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이어지는 순례자 행렬이 길을 메웠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산 너머로 **요단**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잔잔한 **사해**의 물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반쯤 왔을 때, **예수**는 (그의 후반부 생애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될 지역인) **감람산**을 처음 보게 됐으며, 바로 그 산마루 너머에 **거룩한 성**(城)이 있다고 **요셉**이 그에게 알려 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과 집을 곧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쁜 기대감으로 소년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다.

그들은 **감람원**의 동쪽 비탈에 있는 **베다니**라 불리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쉬기 위해서 멈췄다. 호의적인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를 보살피기 위해 몰려 나왔으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에게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세 아이--곧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쉬어갈 수 있도록 초대했고, 이 두 가족 사이에 평

revealed this episode to her.

124:6.5 (1374.5) The road now led immediately down into the tropical Jordan valley, and soon Jesus was to have exposed to his wondering gaze the crooked and ever-winding Jordan with its glistening and rippling waters as it flowed down toward the Dead Sea. They laid aside their outer garments as they journeyed south in this tropical valley, enjoying the luxurious fields of grain and the beautiful oleanders laden with their pink blossoms, while massive snow-capped Mount Hermon stood far to the north, in majesty looking down on the historic valley. A little over three hours' travel from opposite Scythopolis they came upon a bubbling spring, and here they camped for the night, out under the starlit heavens.

124:6.6 (1374.6) On their second day's journey they passed by where the Jabbok, from the east, flows into the Jordan, and looking east up this river valley, they recounted the days of Gideon, when the Midianites poured into this region to overrun the land. Toward the end of the second day's journey they camped near the base of the highest mountain overlooking the Jordan valley, Mount Sartaba, whose summit was occupied by the Alexandrian fortress where Herod had imprisoned one of his wives and buried his two strangled sons.

124:6.7 (1375.1) The third day they passed by two villages which had been recently built by Herod and noted their superior architecture and their beautiful palm gardens. By nightfall they reached Jericho, where they remained until the morrow. That evening Joseph, Mary, and Jesus walked a mile and a half to the site of the ancient Jericho, where Joshua, for whom Jesus was named, had performed his renowned exploits,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124:6.8 (1375.2) By the fourth and last day's journey the road was a continuous procession of pilgrims. They now began to climb the hills leading up to Jerusalem. As they neared the top, they could look across the Jordan to the mountains beyond and south over the sluggish waters of the Dead Sea. About halfway up to Jerusalem, Jesus gained his first view of the Mount of Olives (the region to be so much a part of his subsequent life), and Joseph pointed out to him that the Holy City lay just beyond this ridge, and the lad's heart beat fast with joyous anticipation of soon beholding the city and house of his heavenly Father.

124:6.9 (1375.3) On the eastern slopes of Olivet they paused for rest in the borders of a little village called Bethany. The hospitable villagers poured forth to minister to the pilgrims, and it happened that Joseph and his family had stopped near the house of one Simon, who had three children about the same age as Jesus — Mary, Martha, and Lazarus. They invited the Nazareth family in for

생의 우정이 여기서 싹트게 됐다. 그 후로, **예수**는 다사{多事}한 생애 동안, 이 집에 여러 번 머물렀다.

그들은 길을 재촉해서, 잠시 후에 **감람원** 경계선에 도착했고, **예수**는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과** 거만스런 저택들, 그리고 **아버지의** 감동스런 성전을 봤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4월의 이날 오후에 **감람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게 됐을 때, 그토록 완전하게 자신을 매혹시킨,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감격을 전에는 체험한 적이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는 같은 지점에 서서, 또 다른 선지자, 즉 하늘에서 보낸 선생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생을 거부하려는 이 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됐다. 성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전(聖殿)을 지나갔으며, **예수**는 이처럼 많은 군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알려진 세계 도처에서 이런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곰곰이 숙고했다.

이윽고 그들은 **유월절** 주간에 머물기로 미리 정해놓은 곳에 도착했으며, 이 큰 집은 **마리아**의 부유한 친척집이었고, **사가라**를 통해서 **요한과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은 **예비일**{豫備日}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안식일**에 합당한 축하행사를 위해 준비했다.

온 **예루살렘**이 **유월절** 준비로 들떠있었으나, **요셉**은 틈을 내서 **예수**를 데리고, 2년 후에 **예수**가 15세가 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자마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학교를 방문했다. **요셉**은, 이렇게 주의 깊게 마련된 계획에 대해 **예수**가 그토록 관심 없음을 보였을 때 매우 당황했다.

예수는 성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예배, 그리고 다른 행사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 살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홀로 사색하기에 무척 열중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는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왜 죄 없고 힘없는 동물을 이토록 많이 죽이도록 요구하시는가 하는 등의, (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몇 가지 황당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대답과 설명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예리하게 추론하는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얼굴 표정에서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유월절 안식일 전날에, 영적 광채의 물결이 홍수처럼 **예수**의 필사 정신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의 인간적 마음은, 고대의 **유월절**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영적으로 눈멀고 도덕적으로 무지한 대중에 대한 자애로운 동정심으로 차고 넘치게 됐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내던 날 가운데 가장 특이한 날들 가운데 하

refreshment, and a lifelong friendship sprang up between the two families. Many times afterward, in his eventful life, Jesus stopped in this home.

124:6.10 (1375.4) They pressed on, soon standing on the brink of Olivet, and Jesus saw for the first time (in his memory) the Holy City, the pretentious palaces, and the inspiring temple of his Father. At no time in his life did Jesus ever experience such a purely human thrill as that which at this time so completely enthralled him as he stood there on this April afternoon on the Mount of Olives, drinking in his first view of Jerusalem. And in after years, on this same spot he stood and wept over the city which was about to reject another prophet, the last and the greatest of her heavenly teachers.

124:6.11 (1375.5) But they hurried on to Jerusalem. It was now Thursday afternoon. On reaching the city, they journeyed past the temple, and never had Jesus beheld such throngs of human beings. He meditated deeply on how these Jews had assembled here from the uttermost parts of the known world.

124:6.12 (1375.6) Soon they reached the place prearranged for their accommodation during the Passover week, the large home of a well-to-do relative of Mary's, one who knew something of the early history of both John and Jesus, through Zacharias. The following day, the day of preparation, they made ready for the appropriat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Sabbath.

124:6.13 (1375.7) While all Jerusalem was astir in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Joseph found time to take his son around to visit the academy where it had been arranged for him to resume his education two years later, as soon as he reached the required age of fifteen. Joseph was truly puzzled when he observed how little interest Jesus evinced in all these carefully laid plans.

124:6.14 (1375.8) Jesus was profoundly impressed by the temple and all the associated services and other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since he was four years old, he was too much preoccupied with his own meditations to ask many questions. He did, however, ask his father several embarrassing questions (as he had on previous occasions) as to why the heavenly Father required the slaughter of so many innocent and helpless animals. And his father well knew from the expression on the lad's face that his answers and attempts at explanation were unsatisfactory to his deep-thinking and keen-reasoning son.

124:6.15 (1376.1) On the day before the Passover Sabbath, flood tides of spiritual illumination swept through the mortal mind of Jesus and filled his human heart to overflowing with affectionate pity for the spiritually blind and morally ignorant multitudes assembled for the celebration of the ancient Passover commemoration. This was one

나였으며;그날 밤, 그의 이 세상 행적 중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의 명령을 받아 **살빙톤**으로부터 파견된 사자{使者}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 활동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렛**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이 나이 어린 그의 어깨 위에 지워지기도 전에, 이제 열세 살도 채 안된 이 소년에게 천상{天上}의 사자가 파견되어, 우주에 대한 책임을 재개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주지시켰다. 이것은, **아들의 유란시아** 증여를 완성하고, “그의 인성{人性} 신성{神性}의 어깨 위에 우주 정부를” 되돌려주는 일을 완성함으로써 마침내 정점{頂點}에 도달하게 될, 길고도 연속적인 많은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됐다. 우리는, 이 **나사렛** 소년이 **네바돈**의 **창조주**임을 거의 납득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아들**의 영과 **낙원 아버지**의 영이 인간의 혼과 어떻게 해서 연합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간 정신이 육신으로는 자기 인생을 살지만, 영으로는 그 어깨 위에 우주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이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사렛** 소년의 경력은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는 --신성한 인간을 점점 더 자각하는-- 청소년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는 가족 및 당대{當代}의 사회에 대한 책무와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확대되는 일생의 목적과 연합시키기 위해 애쓰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보낼 생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

of the most extraordinary days that the Son of God spent in the flesh; and during the night, for the first time in his earth career, there appeared to him an assigned messenger from Salvington, commissioned by Immanuel, who said: “The hour has come. It is time that you began to be about your Father’s business.”

124:6.16 (1376.2) And so, even ere the heavy responsibilities of the Nazareth family descended upon his youthful shoulders, there now arrived the celestial messenger to remind this lad, not quite thirteen years of age, that the hour had come to begin the resump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a universe. This was the first act of a long succession of event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completion of the Son’s bestowal on Urantia and the replacing of “the government of a universe on his human-divine shoulders.”

124:6.17 (1376.3) As time passed,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became, to all of us, more and more unfathomable. We could hardly comprehend that this lad of Nazareth was the creator of all Nebadon. Neither do we nowadays understand how the spirit of this same Creator Son and the spirit of his Paradise Father are associated with the souls of mankind. With the passing of time, we could see that his human mind was increasingly discerning that, while he lived his life in the flesh, in spirit on his shoulders rested the responsibility of a universe.

124:6.18 (1376.4) Thus ends the career of the Nazareth lad, and begins the narrative of that adolescent youth — the increasingly self-conscious divine human — who now begins the contemplation of his world career as he strives to integrate his expanding life purpose with the desires of his parents and his obligations to his family and the society of his day and age.

제125편. 예루살렘에서 예수

⇨ 124

유랜시아 책

12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5편
예루살렘에서 예수

섹션

소개

1. 성전을 둘러보는 예수
2. 예수와 유월절
3.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4. 성전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5. 성전에서 셋째 날
6. 성전에서 넷째 날

PAPER 125
JESUS AT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Views the Temple
2. Jesus and the Passover
3. Departure of Joseph and Mary
4. First and Second Days in the Temple
5. The Third Day in the Temple
6. The Fourth Day in the Temple

소개

예수의 다사한 지상{地上} 생애에서,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인 이 **예루살렘** 방문보다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감동적인 경우는 없었다. 그는 홀로 성전 토론에 참여한 체험으로 특히 고무됐으며, 이것은 후반기 유년시절과 초반부 소년기의 큰 사건으로서 그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었다. 이것은 그가 며칠 동안의 독립적인 생활, 즉 어떤 제재나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들뜬 기분을 맛본 최초의 기회였다. **유월절** 이후 1주일 동안, 지시받지 않고 살았던 이 짧은 기간은, 그가 전에 누렸던 것들 중에서, 책무로부터 가장 완전하게 해방된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가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이와 비슷한 해방의 기간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는, 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실질적으로 거절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기로 결심하자, 다른 여러 **나사렛** 여자도 함께 따라 나섰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유월절**에 올라갔던 무리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례로 볼 때, 여자의 비율이 이번 **유월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INTRODUCTION

125:0.1 (1377.1) NO INCIDENT in all Jesus' eventful earth career was more engaging, more humanly thrilling, than this, his first remembered visit to Jerusalem. He was especially stimulated by the experience of attending the temple discussions by himself, and it long stood out in his memory as the great event of his later childhood and early youth. This was his first opportunity to enjoy a few days of independent living, the exhilaration of going and coming without restraint and restrictions. This brief period of undirected living, during the week following the Passover, was the first complete freedom from responsibility he had ever enjoyed. And it was many years subsequent to this before he again had a like period of freedom from all sense of responsibility, even for a short time.

125:0.2 (1377.2) Women seldom went to the Passover feast at Jerusalem; they were not required to be present. Jesus, however, virtually refused to go unless his mother would accompany them. And when his mother decided to go, many other Nazareth women were led to make the journey, so that the Passover company contained the largest number of women, in proportion to men, ever to go up to the Passover from Nazareth. Ever and anon, on the way to Jerusalem, they chanted the one

때때로 **시편** 130편을 노래했다.

그들이 **나사렛**을 떠날 때부터 **감람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줄곧 긴장되는 체험을 했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 내내, 그는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에 관해 경건하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곧 그것들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그가 **감람산**에서 그리고 밖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면밀히 보게 됐을 때, 성전은 **예수**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 신성시되는 입구로 일단 들어가자, 큰 혐오감이 일어났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봉헌될 새로운 율법의 아들들 무리와 합류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성전 경내를 지나가게 됐다. 그는 성전에 들어온 군중의 대체적 행실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날 그가 받은 첫 번째 큰 충격은 어머니가 일행을 떠나 여자들의 처소로 갔을 때였다. **예수**는 어머니가 봉헌 예식에 자신과 함께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그런 불공정한 차별로 고통 받게 됐다는 것에 크게 분개했다. 그는 이 일로 몹시 화났지만, 아버지에게 몇 마디 불만을 표시한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이것은 1주일 후에 서기관과 선생들에게 던진 여러 질문에서 드러났다.

봉헌 제례식을 잘 마쳤지만, 그는 이 예식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것에 실망했다. 그는, 각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특징인, **나사렛** 회당의 예식이 몹시 생각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돌아갔고, 아버지와 함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뜰과 방 그리고 복도를 처음으로 돌아보고자 했다. 성전 경내는 한 번에 20만 명 이상의 경배자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 그가 전에 보았던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이 건물의 방대함이 그의 정신을 크게 감동시켰지만, 그는 성전 예식과 거기에 관련된 경배의 영적 의미 심장함을 숙고하는 일에 더 관심을 뒀다.

성전의 제례식 가운데 다수가, 그의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감각에 매우 감동적인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그의 예리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모가 제시하려했던, 이런 예식의 실제 의미에 대한 설명에 그는 늘 실망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전능자**가 노여워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경배와 종교적 헌신을 설명하는 말을 그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성전 방문이 끝난 후에 이 문제를 계속 토론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적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고백하도록 완곡하게 타이르게 했을 때, **예수**는 갑자기 부모에게 돌아서서 아버지의 눈을 애원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하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이, 아버지가 나

hundred and thirtieth Psalm.

125:0.3 (1377.3) From the time they left Nazareth until they reached the summit of the Mount of Olives, Jesus experienced one long stress of expectant anticipation. All through a joyful childhood he had reverently heard of Jerusalem and its temple; now he was soon to behold them in reality. From the Mount of Olives and from the outside, on closer inspection, the temple had been all and more than Jesus had expected; but when he once entered its sacred portals, the great disillusionment began.

125:0.4 (1377.4) In company with his parents Jesus passed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on his way to join that group of new sons of the law who were about to be consecrated as citizens of Israel. He was a little disappointed by the general demeanor of the temple throngs, but the first great shock of the day came when his mother took leave of them on her way to the women's gallery. It had never occurred to Jesus that his mother was not to accompany him to the consecration ceremonies, and he was thoroughly indignant that she was made to suffer from such unjust discrimination. While he strongly resented this, aside from a few remarks of protest to his father, he said nothing. But he thought, and thought deeply, as his questions to the scribes and teachers a week later disclosed.

125:0.5 (1377.5) He passed through the consecration rituals but was disappointed by their perfunctory and routine natures. He missed that personal interest which characterized the ceremonies of the synagogue at Nazareth. He then returned to greet his mother and prepared to accompany his father on his first trip about the temple and its various courts, galleries, and corridors. The temple precincts could accommodate over two hundred thousand worshipers at one time, and while the vastness of these buildings — in comparison with any he had ever seen — greatly impressed his mind, he was more intrigued by the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temple ceremonies and their associated worship.

125:0.6 (1378.1) Though many of the temple rituals very touchingly impressed his sense of the beautiful and the symbolic, he was always disappointed by the explanation of the real meanings of these ceremonies which his parents would offer in answer to his many searching inquiries. Jesus simply would not accept explanations of worship and religious devotion which involved belief in the wrath of God or the anger of the Almighty. In further discussion of these ques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emple visit, when his father became mildly insistent that he acknowledge acceptance of the orthodox Jewish beliefs, Jesus turned suddenly upon his parents and, looking appealingly into the eyes of his father, said: “My father, it cannot be true — the

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다가 어리석은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신성한 분**의 성품을 어떻게 소유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선하고 자비가 넘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맏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관한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들이 다시 시도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1. 성전을 둘러보는 예수

예수는 성전에 있는 여러 뜰 전체를 하나씩 둘러볼 때마다, 자신이 목격한 불경스런 풍조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는, 성전에 있는 군중의 행동은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과 상반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어린 시절의 그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의 시끄러운 사투리와 큰 소리의 지껄임과 욕지거리들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환전하는 자나 희생동물을 판매하는 자들과 잡상인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얹혀서, 매우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에 **세포리**를 방문했을 때 그가 본 적이 있는 화장 한 여자와 똑같은, 천박한 매춘부들이 이 성전 경내를 활보하고 있는 광경으로 인해, 그의 예의범절 감각이 분노로 끓어올랐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은 그의 혈기왕성한 의분(義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 말했다.

예수는 성전의 분위기와 예배에는 감탄했지만, 무의미하게 경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비친 영적 추함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성전 앞의 돌난간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의 뜰로 내려갔으며,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동물을 죽이는 장면과, 제사를 집행한 도살 제사장들이 청동으로 만든 그릇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로 얼룩진 도로, 제사장의 피투성이의 손,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신음소리에, 자연을 사랑하는 이 소년은 견딜 수 없었다. 그런 흉측한 광경이 이 **나사렛** 소년의 비위를 상하게 했으며; 그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게 됐지만, 거기서 들려오는 조잡한 웃음소리나 천박한 농담조차, 방금 전에 봤던 광경으로부터 기분을 전환시켰다.

Father in heaven cannot so regard his erring children on earth. The heavenly Father cannot love his children less than you love me. And I well know, no matter what unwise thing I might do, you would never pour out wrath upon me nor vent anger against me. If you, my earthly father, possess such human reflections of the Divine, how much more must the heavenly Father be filled with goodness and overflowing with mercy. I refuse to believe that my Father in heaven loves me less than my father on earth.”

125:0.7 (1378.2) When Joseph and Mary heard these words of their first-born son, they held their peace. And never again did they seek to change his mind about the love of God and the mercifulness of the Father in heaven.

1. JESUS VIEWS THE TEMPLE

125:1.1 (1378.3) Everywhere Jesus went throughout the temple courts, he was shocked and sickened by the spirit of irreverence which he observed. He deemed the conduct of the temple throngs to be inconsistent with their presence in “his Father’s house.” But he received the shock of his young life when his father escorted him into the court of the gentiles with its noisy jargon, loud talking and cursing, mingled indiscriminately with the bleating of sheep and the babble of noises which betrayed the presence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vendors of sacrificial animals and sundry other commercial commodities.

125:1.2 (1378.4) But most of all was his sense of propriety outraged by the sight of the frivolous courtesans parading about within this precinct of the temple, just such painted women as he had so recently seen when on a visit to Sephoris. This profanation of the temple fully aroused all his youthful indignation, and he did not hesitate to express himself freely to Joseph.

125:1.3 (1378.5) Jesus admired the sentiment and service of the temple, but he was shocked by the spiritual ugliness which he beheld on the faces of so many of the unthinking worshippers.

125:1.4 (1378.6) They now passed down to the priests’ court beneath the rock ledge in front of the temple, where the altar stood, to observe the killing of the droves of animals and the washing away of the blood from the hands of the officiating slaughter priests at the bronze fountain. The bloodstained pavement, the gory hands of the priests, and the sounds of the dying animals were more than this nature-loving lad could stand. The terrible sight sickened this boy of Nazareth; he clutched his father’s arm and begged to be taken away. They walked back through the court of the gentiles, and even the coarse laughter and profane jesting which he there heard were a relief from the sights

요셉은 아들이 성전 제례들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봤으므로, 슬기롭게 그를 데리고 가서, **고린도식** 청동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처음 성전 방문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성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인파로부터 벗어나 바깥으로 나와서 한 시간 가량 걸었고, **헤롯**이 살았던 웅장한 모습의 **하스몬 왕조** 궁전과 **로마** 경비병의 탑을 봤다. 이렇게 산책하는 동안에 **요셉**은, 매일 성전에서 치르는 희생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민에게만 허락된다는 것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1년에 세 번, 즉: **유월절**, (**유월절**로부터 7주 후의) **오순절**, 그리고 10월의 **장막절** 축제의 경우에만 성전 경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에게 설명해 줬다. 이런 축제들은 **모세**가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가지 축제인 봉헌식과 **부림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에 숙소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했다.

2. 예수와 유월절

다섯 **나사렛** 가정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 가족의 손님으로서 또는 친지로서 **유월절** 축제에 초대됐는데, **시몬**이 일행을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구입해 줬다. **예수**가 성전 방문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그토록 많은 어린양의 살생이었다.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기로 계획했지만, **예수**는 **베다니**로 가자는 초대에 응하도록 부모를 설득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 제례를 위해서 모였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구운 고기를 먹었다. 새롭게 계명의 아들이 될 **예수**는,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잘 했으나, 어리지만 사려 깊은 그의 마음 속에 아주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해 느꼈던 것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모를 조금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축제의 7일 동안의 예식이 시작됐다.

이처럼 시작에 불과할 때, 그런 문제들에 관해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양을 죽이지 않고 **유월절**을 축하하는 것이 타당한지, 마음 속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런 희생 제물 바치는 장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했고, 해가 갈수록, 언젠가는 피 흘림 없는 **유월절** 축하 의식(儀式)을 제정하기로 더욱 결심하게 됐다.

he had just beheld.

125:1.5 (1379.1) Joseph saw how his son had sickened at the sight of the temple rites and wisely led him around to view the “gate beautiful,” the artistic gate made of Corinthian bronze. But Jesus had had enough for his first visit at the temple. They returned to the upper court for Mary and walked about in the open air and away from the crowds for an hour, viewing the Asmonean palace, the stately home of Herod, and the tower of the Roman guards. During this stroll Joseph explained to Jesus that only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were permitted to witness the daily sacrifices in the temple, and that the dwellers in Galilee came up only three times a year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worship: at the Passover, at the feast of Pentecost (seven weeks after Passover), and at the feast of tabernacles in October. These feasts were established by Moses. They then discussed the two later established feasts of the dedication and of Purim. Afterward they went to their lodgings and made ready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2. JESUS AND THE PASSOVER

125:2.1 (1379.2) Five Nazareth families were guests of, or associates with, the family of Simon of Bethany in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Simon having purchased the paschal lamb for the company. It was the slaughter of these lambs in such enormous numbers that had so affected Jesus on his temple visit. It had been the plan to eat the Passover with Mary's relatives, but Jesus persuaded his parents to accept the invitation to go to Bethany.

125:2.2 (1379.3) That night they assembled for the Passover rites, eating the roasted flesh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Jesus, being a new son of the covenant, was asked to recount the origin of the Passover, and this he well did, but he somewhat disconcerted his parents by the inclusion of numerous remarks mildly reflecting the impressions made on his youthful but thoughtful mind by the things which he had so recently seen and hear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even-day ceremonies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125:2.3 (1379.4) Even at this early date, though he said nothing about such matters to his parents, Jesus had begun to turn over in his mind the propriety of celebrating the Passover without the slaughtered lamb. He felt assured in his own mind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pleased with this spectacle of sacrificial offerings, and as the years passed, he became increasingly determined someday to establish the celebration of a bloodless Passover.

예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휴식은 살육과 고통의 불쾌한 꿈 때문에 크게 방해받았다. **유대인**의 예식 체계 전반에 담긴 신학의 모순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산란해졌고 심정은 찢어졌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쳤다. 그들은 방금 끝난 그날의 일 때문에 크게 당황했다. 그 소년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고 고집스럽게 보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날 밤 초반에, **마리아**는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었지만, **요셉**은 똑같이 당혹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예수**는, 부모가 과감히 자기를 격려해 줬다면, 기꺼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그들은 둘 다 이 문제에 관해 그와 솔직히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다.

예수는 다음 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배에서는 좀 더 나은 인상을 받았고, 전날에 느꼈던 불쾌한 기억은 많이 완화됐다. 다음 날 아침에는, 어린 **나사로**가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답사했다. 그날 해 지기 전에, **예수**는 가르치고 질문하는 회담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의 여러 장소를 발견했으며; 지성소(至聖所)를 몇 차례 방문해서, 회장으로 격리된 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바라본 것 외에는, 가르치는 이 회담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유월절 주간 내내, **예수**는 새로 임명된 계명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됐는데,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따로 갈라놓는 울타리 바깥에 앉아 있어야함을 의미했다. 그는 자기가 아직은 어린 나이임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정신 속에 요동치는 많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참았으며; 적어도, **유월절** 축제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봉헌된 소년들에게 이런 제제가 풀릴 때까지는 참았다.

유월절 주간의 수요일에, **예수**는 그날 밤 **나사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베다니**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날 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인간적인 그리고 신성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고, 그날 밤 이후로 이 세 사람은 **예수**를 친 형제라도 된 것처럼 사랑하게 됐다.

예수는 그 주간이 끝날 때까지 **나사로**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바깥뜰에서 행해지는 어떤 공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참관인의 자격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로**도 **예수**와 같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소년들은, 완전히 열세 살이 되기 전에는 계명의 아들로서 임명식에 좀처럼 참여할 수 없었다.

유월절 주간에, **예수**의 부모는,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자 따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125:2.4 (1379.5) Jesus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His rest was greatly disturbed by revolting dreams of slaughter and suffering. His mind was distraught and his heart torn by the inconsistencies and absurdities of the theology of the whole Jewish ceremonial system. His parents likewise slept little. They were greatly disconcerted by the events of the day just ended. They were completely upset in their own hearts by the lad's, to them, strange and determined attitude. Mary became nervously agitated during the fore part of the night, but Joseph remained calm, though he was equally puzzled. Both of them feared to talk frankly with the lad about these problems, though Jesus would gladly have talked with his parents if they had dared to encourage him.

125:2.5 (1379.6) The next day's services at the temple were more acceptable to Jesus and did much to relieve the unpleasant memories of the previous day. The following morning young Lazarus took Jesus in hand, and they began a systematic exploration of Jerusalem and its environs. Before the day was over, Jesus discovered the various places about the temple where teaching and question conferences were in progress; and aside from a few visits to the holy of holies to gaze in wonder as to what really was behind the veil of separation, he spent most of his time about the temple at these teaching conferences.

125:2.6 (1380.1) Throughout the Passover week, Jesus kept his place among the new sons of the commandment, and this meant that he must seat himself outside the rail which segregated all persons who were not full citizens of Israel. Being thus made conscious of his youth, he refrained from asking the many questions which surged back and forth in his mind; at least he refrained until the Passover celebration had ended and these restrictions on the newly consecrated youths were lifted.

125:2.7 (1380.2) On Wednesday of the Passover week, Jesus was permitted to go home with Lazarus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This evening, Lazarus, Martha, and Mary heard Jesus discuss things temporal and eternal, human and divine, and from that night on they all three loved him as if he had been their own brother.

125:2.8 (1380.3) By the end of the week, Jesus saw less of Lazarus since he was not eligible for admission to even the outer circle of the temple discussions, though he attended some of the public talks delivered in the outer courts. Lazarus was the same age as Jesus, but in Jerusalem youths were seldom admitted to the consecration of sons of the law until they were a full thirteen years of age.

125:2.9 (1380.4) Again and again, during the Passover week, his parents would find Jesus sitting off by

빠져있는 것을 거듭 발견했다. 그들은 전에는 그의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체험으로 인해 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돼 있고 영적으로 불안했는지 몰랐으므로, 무척 당황했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다만 **유월절** 주간이 어서 지나가기만 기다렸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들을 데리고 빨리 **나사렛**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고대했다.

예수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두루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말이 될 무렵에 많은 것을 정리했지만, **나사렛**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그의 어린 정신은 혼란함으로 여전히 가득 차고, 다수의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열다섯 살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장 저명한 랍비 학교들 가운데 하나에서 긴 교육 과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수**를 가르친 선생과 함께 확실히 조치를 취했다. **예수**는 부모와 선생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예수**가 전혀 무관심한 것을 보고 걱정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예수**의 반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요셉**은 소년의 생소한 소견과, 평소와 다른 행동 때문에 몹시 당황했다.

결국, **유월절** 주간은 **예수**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봉헌식에 후보자로 왔던 자기 나이 또래의 여러 소년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런 접촉을 활용해서,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 그리고 **파르디아**뿐 아니라 **로마**의 **극서**(極西)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집트**와 **팔레스틴** 근방의 다른 지역의 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꽤 알고 있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이 머물렀으며, **나사렛** 소년은, 150명 이상의 소년과 개인적으로 만났고, 다소 광범하게 면담했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멀리 떨어진 **서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접촉한 결과로, 동료 사람들이 속하는 다양한 집단이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 지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은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

3.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나사렛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첫 날 오전에 성전 근처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모여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예수**는, 부모가 함께 돌아갈 동료 여행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토론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일행은 떠날 준비가 됐고, **예루살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오고

himself with his youthful head in his hands, profoundly thinking. They had never seen him behave like this, and not knowing how much he was confused in mind and troubled in spirit by the experience through which he was passing, they were sorely perplexed; they did not know what to do. They welcomed the passing of the days of the Passover week and longed to have their strangely acting son safely back in Nazareth.

125:2.10 (1380.5) Day by day Jesus was thinking through his problems. By the end of the week he had made many adjustments; but when the time came to return to Nazareth, his youthful mind was still swarming with perplexities and beset by a host of unanswered questions and unsolved problems.

125:2.11 (1380.6) Before Joseph and Mary left Jerusalem, in company with Jesus' Nazareth teacher they made definite arrangements for Jesus to return when he reached the age of fifteen to begin his long course of study in one of the best-known academies of the rabbis. Jesus accompanied his parents and teacher on their visits to the school, but they were all distressed to observe how indifferent he seemed to all they said and did. Mary was deeply pained at his reactions to the Jerusalem visit, and Joseph was profoundly perplexed at the lad's strange remarks and unusual conduct.

125:2.12 (1380.7) After all, Passover week had been a great event in Jesus' life. He had enjoyed the opportunity of meeting scores of boys about his own age, fellow candidates for the consecration, and he utilized such contacts as a means of learning how people lived in Mesopotamia, Turkestan, and Parthia, as well as in the Far-Western provinces of Rome. He was already fairly conversant with the way in which the youth of Egypt and other regions near Palestine grew up. There were thousands of young people in Jerusalem at this time, and the Nazareth lad personally met, and more or less extensively interviewed,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He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ose who hailed from the Far-Eastern and the remote Western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contacts the lad began to entertain a desire to travel about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learning how the various groups of his fellow men toiled for their livelihood.

3. DEPARTURE OF JOSEPH AND MARY

125:3.1 (1381.1)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Nazareth party should gather in the region of the temple at midforenoo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fter the Passover festival had ended. This they did and started out on the return journey to Nazareth. Jesus had gone into the temple to listen to the discussions while his parents awaited the

갈 때의 그들의 관례대로, 남자와 여자는 각각 따로 무리지어 걸어갔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 무리와 함께 했었다. 그는 이제 봉헌된 성인이므로,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게 돼있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베다니**를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성전에서 천사에 대한 토론에 완전히 몰입했으므로, 부모가 떠날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 성전 논의가 산화될 때까지도, 그는 홀로 거기에 남게 됐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사렛 여행객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의 당나귀를 끌고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으므로, 이번에도 여자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날 밤 거기서 지내려고 준비할 때에야, 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에,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유월절** 주간에는 보인 **예수**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면서,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걱정했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가 있는지 살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은근히 상대방을 원망했다.

4. 성전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러는 동안 **예수**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유월절** 주간에는 있었던 많은 인파가 이미 거의 떠난 후로 좀 더 조용하고 정숙해진 분위기들을 즐기면서, 그날 오후 내내 성전에 있었다. **예수**는 한 번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후 토론이 끝나자, 혼자 **베다니**로 갔고, **시몬**의 가족은 그때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세 아이는 **예수**를 몹시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그날 밤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그날 저녁에는 거의 교제하지 않았고, 정원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그는 **감람산** 정상에서 잠깐 멈췄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곧 전통에 얽매이고 **로마** 군단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전 일찍 성전에 도착한 그는, 토론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성전으로 갔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우선 **유월절** 기간에 한 가족으로 머물렀던 친척 집으로 서둘러서 갔지만, 아무

assembly of their fellow travelers. Presently the company prepared to depart, the men going in one group and the women in another as was their custom in journeying to and from the Jerusalem festivals. Jesus had gone up to Jerusalem in company with his mother and the women. Being now a young man of the consecration, he was supposed to journey back to Nazareth in company with his father and the men. But as the Nazareth party moved on toward Bethany, Jesus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discussion of angels, in the temple, being wholly unmindful of the passing of the time for the departure of his parents. And he did not realize that he had been left behind until the noontime adjournment of the temple conferences.

125:3.2 (1381.2) The Nazareth travelers did not miss Jesus because Mary surmised he journeyed with the men, while Joseph thought he traveled with the women since he had gone up to Jerusalem with the women, leading Mary's donkey. They did not discover his absence until they reached Jericho and prepared to tarry for the night. After making inquiry of the last of the party to reach Jericho and learning that none of them had seen their son, they spent a sleepless night, turning over in their minds what might have happened to him, recounting many of his unusual reactions to the events of Passover week, and mildly chiding each other for not seeing to it that he was in the group before they left Jerusalem.

4. FIRST AND SECOND DAYS IN THE TEMPLE

125:4.1 (1381.3) In the meantime, Jesus had remained in the temple throughout the afternoon, listening to the discussions and enjoying the more quiet and decorous atmosphere, the great crowds of Passover week having about disappeared. At the conclusion of the afternoon discussions, in none of which Jesus participated, he betook himself to Bethany, arriving just as Simon's family made ready to partake of their evening meal. The three youngsters were overjoyed to greet Jesus, and he remained in Simon's house for the night. He visited very little during the evening, spending much of the time alone in the garden meditating.

125:4.2 (1381.4) Early next day Jesus was up and on his way to the temple. On the brow of Olivet he paused and wept over the sight his eyes beheld—a spiritually impoverished people, tradition bound and living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Roman legions. Early forenoon found him in the temple with his mind made up to take part in the discussions. Meanwhile, Joseph and Mary also had arisen with the early dawn with the intention of retracing their steps to Jerusalem. First, they

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를 찾았으나 행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밤에는 친척집으로 돌아갔다.

둘째 논의에서, **예수**는 대담하게 질문했고, 성전 토론에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언제나 소년다운 태도로 임했다. 때때로 그의 날카로운 질문이, **유대인**의 율법에 조예가 깊은 선생들을 어느 정도 당황하게 했지만, 그가 솔직한 공평성의 기질과 함께 지식을 갈망하는 명백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성전의 선생들 대부분은 그를 잘 배려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술 취한 한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성전 안의 금지된 구역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너그럽지 못한 선생 가운데 하나가, 이 소년의 간접적인 비난을 참다못해, 인상을 찡그리고 그를 노려보면서 몇 살이나고 물었다. **예수**는 “열세 살에서 4개월 조금 더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난 선생이 이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율법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예수**가, **유월절** 기간 중에 임명 받았고, **나사렛**에서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고 설명하자, 선생들이 하나같이 조롱하면서, “우리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사렛**에서 왔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자는, **나사렛** 회당 관리들이 열세 살이 아닌 열두 살에 그를 합법적으로 졸업시켰다면, **예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를 험담하던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음에도, 소년은 성전 토론에서 앞으로는 학생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성전에서 보낸 둘째 날이 끝나자, 잠자기 위해 다시 **베다니**로 갔다. 그날도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의 정신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에 관여돼 있음이 분명했다.

5. 성전에서 셋째 날

예수가 성전에서 서기관 및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셋째 날에, **갈릴리**에서 온 이 소년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구경꾼이, 율법학자들을 혼란시켰다는 한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시몬** 역시, 소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베다니**에서 왔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날도 하루 종일 걱정스레 **예수**를 찾아 다녔고, 성전에도 몇 번씩이나 왔었으며, 한 번은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거의 왔었음에도, 여러 토론모임을 유심히 살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hastened to the house of their relatives, where they had lodged as a family during the Passover week, but inquiry elicited the fact that no one had seen Jesus. After searching all day and finding no trace of him, they returned to their relatives for the night.

125:4.3 (1382.1) At the second conference Jesus had made bold to ask questions, and in a very amazing way he participated in the temple discussions but alway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his youth. Sometimes his pointed questions were somewhat embarrassing to the learned teachers of the Jewish law, but he evinced such a spirit of candid fairness, coupled with an evident hunger for knowledge, that the majority of the temple teachers were disposed to treat him with every consideration. But when he presumed to question the justice of putting to death a drunken gentile who had wandered outside the court of the gentiles and unwittingly entered the forbidden and reputedly sacred precincts of the temple, one of the more intolerant teachers grew impatient with the lad's implied criticisms and, glowering down upon him, asked how old he was. Jesus replied, "thirteen years lacking a trifle more than four months." "Then," rejoined the now irate teacher, "why are you here, since you are not of age as a son of the law?" And when Jesus explained that he had received consecration during the Passover, and that he was a finished student of the Nazareth schools, the teachers with one accord derisively replied, "We might have known; he is from Nazareth." But the leader insisted that Jesus was not to be blamed i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at Nazareth had graduated him, technically, when he was twelve instead of thirteen; and notwithstanding that several of his detractors got up and left, it was ruled that the lad might continue undisturbed as a pupil of the temple discussions.

125:4.4 (1382.2) When this, his second day in the temple, was finished, again he went to Bethany for the night. And again he went out in the garden to meditate and pray. It was apparent that his mind was concerned with the contemplation of weighty problems.

5. THE THIRD DAY IN THE TEMPLE

125:5.1 (1382.3) Jesus' third day with the scribes and teachers in the temple witnessed the gathering of many spectators who, having heard of this youth from Galilee, came to enjoy the experience of seeing a lad confuse the wise men of the law. Simon also came down from Bethany to see what the boy was up to. Throughout this day Joseph and Mary continued their anxious search for Jesus, even going several times into the temple but never thinking to scrutinize the several discussion groups, although they once came

그날이 끝날 무렵에는, 성전의 주요 토론 모임의 모든 관심이 **예수**가 물어보는 질문들로 집중됐다. 그의 여러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성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2.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남자로부터 왜 분리돼 있어야 하는가?

3.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면, 신성한 호의를 얻기 위해 왜 이렇게 동물을 죽여야 하는가--**모세**의 교훈이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닌가?

4.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경배 드리기 위해 성전이 봉헌됐다면서, 세속적인 거래나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해도 되는가?

5.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임시로 앉을 현재의 왕자가 되실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나라 설립에서 생명의 빛 역할을 하실 분인가?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듣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경탄했고, **시몬**보다 더 놀랜 사람은 없었다. 네 시간이 넘도록, 이 **나사렛** 소년은 **유대인** 선생들에게, 사고를 자극하고 심정을 살펴보는 질문들을 퍼부었다. 그는 장로들의 견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그는 능숙하고 명민하게 질문을 구사함으로써,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했고,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그가 질문하는 방식에는 현명함과 해학이 매혹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으므로,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소 화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좋아하게 됐다. 그는 이런 예리한 질문을 하면서 항상 탁월하게 공정하고 신중했다. 그는 이 중대한 오후에 성전에서, 반대자를 불공정하게 이용하기를 똑같이 꺼렸는데, 나중에 있었던 그의 전체 공적 사역의 특징이기도 했다. 소년으로서 그리고 후에 성인이 되기까지, 그는 동료들 단지 논리적으로 이겨 논쟁에 승리하려는 이기적 욕망이 전혀 없었었는데, 단 한 가지: 영구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더 충만한 계시의 성취에만 최고의 관심을 두기 때문이었다.

날이 저물자, **시몬**과 **예수**는 함께 **베다니**로 돌아왔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소년과 남자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예수**는 다시 **감람원** 언덕에서 멈췄지만,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지는 않았으며; 다만 고개 숙이고 조용히 기도했다.

almost within hearing distance of his fascinating voice.

125:5.2 (1382.4) Before the day had ended, the entire attention of the chief discussion group of the temple had become focused upon the questions being asked by Jesus. Among his many questions were:

125:5.3 (1382.5) 1. What really exists in the holy of holies, behind the veil?

125:5.4 (1382.6) 2. Why should mothers in Israel be segregated from the male temple worshipers?

125:5.5 (1382.7) 3. If God is a father who loves his children, why all this slaughter of animals to gain divine favor — has the teaching of Moses been misunderstood?

125:5.6 (1382.8) 4. Since the temple is dedicated to the worship of the Father in heaven, is it consistent to permit the presence of those who engage in secular barter and trade?

125:5.7 (1382.9) 5. Is the expected Messiah to become a temporal prince to sit on the throne of David, or is he to function as the light of life in the establishment of a spiritual kingdom?

125:5.8 (1383.1) And all the day through, those who listened marveled at these questions, and none was more astonished than Simon. For more than four hours this Nazareth youth plied these Jewish teachers with thought-provoking and heart-searching questions. He made few comments on the remarks of his elders. He conveyed his teaching by the questions he would ask. By the deft and subtle phrasing of a question he would at one and the same time challenge their teaching and suggest his own. In the manner of his asking a question there was an appealing combination of sagacity and humor which endeared him even to those who more or less resented his youthfulness. He was always eminently fair and considerate in the asking of these penetrating questions. On this eventful afternoon in the temple he exhibited that same reluctance to take unfair advantage of an opponent which characterized his entire subsequent public ministry. As a youth, and later on as a man, he seemed to be utterly free from all egoistic desire to win an argument merely to experience logical triumph over his fellows, being interested supremely in just one thing: to proclaim everlasting truth and thus effect a fuller revelation of the eternal God.

125:5.9 (1383.2) When the day was over, Simon and Jesus wended their way back to Bethany. For most of the distance both the man and the boy were silent. Again Jesus paused on the brow of Olivet, but as he viewed the city and its temple, he did not weep; he only bowed his head in silent devotion.

그는 **베다니**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흥에 겨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시 혼자 정원으로 나갔고, 밤이 깊을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으며, 자신의 필생과업의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명확한 계획을 생각해 내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동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좀더 아름다운 개념을 계시하고, 그럼으로써 율법, 제례식, 예식절차, 및 진부한 전통이라는 끔찍한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소년에게 분명한 빛은 도래하지 않았다.

6. 성전에서 넷째 날

예수는 이상할 정도로 육신의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아침 식사 중에, 지금쯤 부모가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나사로**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에도,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남겨 둔 것에 관해 얼마나 걱정할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다시 성전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목상하기 위해 **감람원** 기슭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진행된 토론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율법과 선지서들에 할애됐고, 선생들은 **예수**가 **그리스어 성서**뿐 아니라 **히브리어 성서**도 잘 알고 있음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알고 있는 진리보다 어린 나이라는 것에 더 놀라워했다.

예수가 질문한 기도의 목적에 관해 그들이 대답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날 오후 회담에서, 인도자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기 옆에 앉히고, 기도와 경배에 관한 그의 견해를 말하라고 했다.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의 부모는, 율법 해석에서 능숙하게 논쟁하고 있다는 이 이상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엘리사벳**과 **요한**을 만나러 **사가라**의 집으로 갔을 지도 모른다고 짐작하여, 그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사가라**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유다의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들렀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뜰을 지나다가, 찾고 있던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게다가 그가 성전의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겠는지 상상해 보라.

요셉은 말문이 막혔지만, **마리아**는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과 걱정을 떨치면서, 아이에게 달려갔으며, 그제야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 있는 그에게, “아들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와 나는 지금까지 3일 넘게 상심하며 너를 찾아 해맸다. 도대체 너는 무엇에 홀려서 우리와 헤어지게 됐느냐?”라고 말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에게 집중됐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책망의 눈으로 바라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

125:5.10 (1383.3) After the evening meal at Bethany he again declined to join the merry circle but instead went to the garden, where he lingered long into the night, vainly endeavoring to think out some definite plan of approach to the problem of his lifework and to decide how best he might labor to reveal to his spiritually blinded countrymen a more beautiful concept of the heavenly Father and so set them free from their terrible bondage to law, ritual, ceremonial, and musty tradition. But the clear light did not come to the truth-seeking lad.

6. THE FOURTH DAY IN THE TEMPLE

125:6.1 (1383.4) Jesus was strangely unmindful of his earthly parents; even at breakfast, when Lazarus's mother remarked that his parents must be about home by that time, Jesus did not seem to comprehend that they would be somewhat worried about his having lingered behind.

125:6.2 (1383.5) Again he journeyed to the temple, but he did not pause to meditate at the brow of Olivet. In the course of the morning's discussions much time was devoted to the law and the prophets, and the teachers were astonished that Jesus was so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in Hebrew as well as Greek. But they were amazed not so much by his knowledge of truth as by his youth.

125:6.3 (1383.6) At the afternoon conference they had hardly begun to answer his question relating to the purpose of prayer when the leader invited the lad to come forward and, sitting beside him, bade him state his own views regarding prayer and worship.

125:6.4 (1383.7) The evening before, Jesus' parents had heard about this strange youth who so deftly sparred with the expounders of the law, but it had not occurred to them that this lad was their son. They had about decided to journey out to the home of Zacharias as they thought Jesus might have gone thither to see Elizabeth and John. Thinking Zacharias might perhaps be at the temple, they stopped there on their way to the City of Judah. As they strolled through the courts of the temple, imagine their surprise and amazement when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issing lad and beheld him seated among the temple teachers.

125:6.5 (1384.1) Joseph was speechless, but Mary gave vent to her long-pent-up fear and anxiety when, rushing up to the lad, now standing to greet his astonished parents, she said: “My child,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It is now more than three days that your father and I have searched for you sorrowing. Whatever possessed you to desert us?” It was a tense moment. All eyes were turned on Jesus to hear what he would say. His father looked reprovingly at him but said nothing.

았다.

예수가 이제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소년으로서의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마쳤고, 율법의 아들로 인정됐으며, 게다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후였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가장 진지하고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의 어린 생애 한 가운데 있을 때,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온순하지만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써, 그가 진리의 선생으로서, 의(義)의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에 대한 계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도록 했다.

그러나 소년은 이 경우에도 한결같았다. 이런 상황을 조장했던 모든 요인을 너희가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즉흥적인 꾸지람에 대해 소년이 어떻게 현명한 대답을 하리라는 것쯤은, 너희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생각한 후에 **예수**는 어머니에게, “나를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나요? 내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왔으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하셨나요?”라고 대답했다.

아이가 말하는 방식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예수**와 부모만 남겨두고 모두 조용히 물러갔다. 이윽고 소년은 세 사람의 난처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가시지요, 아버지 어머니,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정해 놓으셨으니, 함께 집으로 떠나시지요.”

그들은 말없이 길을 재촉해서, 그날 밤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들은 **감람원** 기슭에서 한 번 멈췄을 뿐인데, 그때 그는 밀려오는 격렬한 감정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흔들며 말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로마**의 멍에에 종속되고 자신의 전통에 희생된-- 노예와 다름없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와서 저 성전을 청소하고, 이 속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출할 것이다!”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으며; 부모도 그의 앞에서는 별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만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난처했지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음에도,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집에 도착하자, **예수**는 자신의 애정을 부모에게 확신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염려할 일이 없을 터이니 두려워 말라고, 간단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요한 발언을 마무리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르는 동시에, 이 세상 아버지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125:6.6 (1384.2)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Jesus was supposed to be a young man. He had finished the regular schooling of a child, had been recognized as a son of the law, and had received consecration as a citizen of Israel. And yet his mother more than mildly upbraided him before all the people assembled, right in the midst of the most serious and sublime effort of his young life, thus bringing to an inglorious termination one of the greatest opportunities ever to be granted him to function as a teacher of trut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a revealer of the loving character of his Father in heaven.

125:6.7 (1384.3) But the lad was equal to the occasion. When you take into fair consideration all the factors which combined to make up this situation, you will be better prepared to fathom the wisdom of the boy's reply to his mother's unintended rebuke. After a moment's thought, Jesus answered his mother, saying: "Why is it that you have so long sought me? Would you not expect to find me in my Father's house since the time has come when I should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125:6.8 (1384.4) Everyone was astonished at the lad's manner of speaking. Silently they all withdrew and left him standing alone with his parents. Presently the young man relieved the embarrassment of all three when he quietly said: "Come, my parents, none has done aught but that which he thought best. Our Father in heaven has ordained these things; let us depart for home."

125:6.9 (1384.5) In silence they started out, arriving at Jericho for the night. Only once did they pause, and that on the brow of Olivet, when the lad raised his staff aloft and, quivering from head to foot under the surging of intense emotion, said: "O Jerusalem, Jerusalem, and the people thereof, what slaves you are — subservient to the Roman yoke and victims of your own traditions — but I will return to cleanse yonder temple and deliver my people from this bondage!"

125:6.10 (1384.6) On the three days' journey to Nazareth Jesus said little; neither did his parents say much in his presence. They were truly at a loss to understand the conduct of their first-born son, but they did treasure in their hearts his sayings, even though they could not fully comprehend their meanings.

125:6.11 (1384.7) Upon reaching home, Jesus made a brief statement to his parents, assuring them of his affection and implying that they need not fear he would again give any occasion for their suffering anxiety because of his conduct. He concluded this momentous statement by saying: "While I must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 will also be obedient to my father on earth. I will

정신 속에서 **예수**는, 자신의 생각의 진로를 바꾸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활동 계획을 정해 주려는, 의도는 _ 좋았으나 잘못 인도된 부모의 노력에 동의하기를 여러 번 거절했지만,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헌신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에,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의 관습에 가장 양전하게 순응했다. 그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따르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자 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조정하면서 가족에게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는 문제에서, 그는 아주 숨쉴 있게 처리했다.

요셉은 혼란에 빠졌으나, **마리아**는 **감람원**에서 **예수**가 **메시아** 사명에 대해 예언했던, 그런 체험들을 회상하면서,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예수**의 어머니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경로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다시 힘을 얻어서 애쓰기 시작했고,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외삼촌, 즉 어머니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만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방인이 씌운 정치적 속박의 멍에를 영원히 없앨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과제에 모든 방법으로 헌신했다.

await my hour.”

125:6.12 (1384.8) Though Jesus, in his mind, would many times refuse to *consent* to the well-intentioned but misguided efforts of his parents to dictate the course of his thinking or to establish the plan of his work on earth, still,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his dedication to the doing of his Paradise Father's will, he did most gracefully *conform* to the desires of his earthly father and to the usages of his family in the flesh. Even when he could not consent, he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conform. He was an artist in the matter of adjusting his dedication to duty to his obligations of family loyalty and social service.

125:6.13 (1385.1) Joseph was puzzled, but Mary, as she reflected on these experiences, gained comfort, eventually viewing his utterance on Olivet as prophetic of the Messianic mission of her son as Israel's deliverer. She set to work with renewed energy to mold his thoughts into patriotic and nationalistic channels and enlisted the efforts of her brother, Jesus' favorite uncle; and in every other way did the mother of Jesus address herself to the task of preparing her first-born son to assume the leadership of those who would restore the throne of David and forever cast off the gentile yoke of political bondage.

제126편. 흑독한 시련의 2년

⇨ 125

유란시아 책

127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6편
흑독한 시련의 2년

섹션

소개

1.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2. 요셉의 죽음
3.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4.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
5. 경제적인 악전고투

PAPER 126
THE TWO CRUCIAL YEARS

SECTIONS

Introduction

1. His Fourteenth Year (A.D. 8)
2. The Death of Joseph
3. The Fifteenth Year (A.D. 9)
4. First Sermon in the Synagogue
5. The Financial Struggle

소개

예수가 겪은 세상 생애의 모든 체험 가운데, 열네 살과 열다섯 살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가 신성과 운명에 대해 이미 스스로 의식하기 시작한 후, 그리고 내주하는 **조울사**와 상당히 많이 교통하기 전에, 이 2년은 다사(多事)했던 **유란시아** 생애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 2년은, 큰 시험, 즉 실제적인 유혹의 기간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초기의 혼란과 청년기의 문제들을 거치면서, 어떤 인간 젊은이도, **예수**가 겪었던 것보다 더 쓰라린 시험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예수가 젊은이로 성장하는 이 중요한 기간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부터 시작됐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아들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 즉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가 충성된 아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장차 그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그가 이제부터는 더 순종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물질적 망상,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족 자부심은, 곧 빛이 바래게 됐으며; **마리아**는 이내 더 완전하게 환상에서 깨어나게 돼있었다. 소년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며; 자기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한

INTRODUCTION

126:0.1 (1386.1) OF ALL Jesus' earth-life experiences,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years were the most crucial. These two years, after he began to be self-conscious of divinity and destiny, and before he achieved a large measure of communication with his indwelling Adjuster, were the most trying of his eventful life on Urantia. It is this period of two years which should be called the great test, the real temptation. No human youth, in passing through the early confusions and adjustment problems of adolescence, ever experienced a more crucial testing than that which Jesus passed through during his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young manhood.

126:0.2 (1386.2) This important period in Jesus' youthful development began with the conclusion of the Jerusalem visit and with his return to Nazareth. At first Mary was happy in the thought that she had her boy back once more, that Jesus had returned home to be a dutiful son — not that he was ever anything else — and that he would henceforth be more responsive to her plans for his future life. But she was not for long to bask in this sunshine of maternal delusion and unrecognized family pride; very soon she was to be more completely disillusioned. More and more the boy was in the company of his father; less and less did

편 부모는, 그가 **아버지**의 일에 대한 관계를 숙고하는 것과, 이 세상 직무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의 부모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예수**의 연민의 정과 사랑이 깊어졌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분(義憤)은, 그의 정신 속에서 점점 더 커졌다. **예수**는, 진지한 **바리새인**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매우 존경했으나,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정직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심히 혐오했으며;진실하지 못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밀히 관찰한 후에,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유혹을 받은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런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의 현자(賢者)들 가운데서 보였던, 잊지 못할 그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나사렛** 사람을 기쁘게 했고, 특히 그를 가르쳤던 회당 학교 선생들이 그랬다. 한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의 칭찬이 자자했다. 온 동네 사람은, 그의 어린 시절의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 호의를 가졌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졌으며;드디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도 진정 위대한 선생이 나오게 됐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가 15세가 되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될 날을 고대했다.

he come to her with his problems, while increasingly both his parents failed to comprehend his frequent alternation between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 contemplation of his relation to his Father's business. Frankly, they did not understand him, but they did truly love him.

126:0.3 (1386.3) As he grew older, Jesus' pity and love for the Jewish people deepened, but with the passing years, there developed in his mind a growing righteous resentment of the presence in the Father's temple of the politically appointed priests. Jesus had great respect for the sincere Pharisees and the honest scribes, but he held the hypocritical Pharisees and the dishonest theologians in great contempt; he looked with disdain upon all those religious leaders who were not sincere. When he scrutinized the leadership of Israel, he was sometimes tempted to look with favor on the possibility of his becoming the Messiah of Jewish expectation, but he never yielded to such a temptation.

126:0.4 (1386.4) The story of his exploits among the wise men of the temple in Jerusalem was gratifying to all Nazareth, especially to his former teachers in the synagogue school. For a time his praise was on everybody's lips. All the village recounted his childhood wisdom and praiseworthy conduct and predicted that he was destined to become a great leader in Israel; at last a really great teacher was to come out of Nazareth in Galilee. And they all looked forward to the time when he would be fifteen years of age so that he might be permitted regularly to read the Scriptures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1.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그가 열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가 됐다. 그는 멩에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됐고, 천과 가죽 취급에도 능숙했다. 또한 그는 노련한 목수와 가구 제작자가 되기까지 급속도로 숙련돼 갔다. 이 여름에,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 **나그는 사렛** 북서쪽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자주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이 세상 중여의 본질을 점점 더 자각하기 시작했다.

100년 조금 더 전에, 이 언덕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자(聖者)인 **시므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는 이 **시므온** 언덕 꼭대기에서 **나사렛**과 그 주변 지방을 바라봤다. **므깃도**를 보면서 그는, **이집트** 군대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대승을 거뒀던 이야기와;그리고 후대에는 다른 군대가 어떻게 **유대지방**의 왕 **요시아**를 참패시켰는지를 회상하곤 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쳐부렸다는 장소인 **타낙**을 바라볼 수 있었다. 멀리,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배워온 **도단**의 언덕을 볼 수

1. HIS FOURTEENTH YEAR (A.D. 8)

126:1.1 (1387.1) This is the calendar year of his fourteenth birthday. He had become a good yoke maker and worked well with both canvas and leather. He was also rapidly developing into an expert carpenter and cabinetmaker. This summer he made frequent trips to the top of the hill to the northwest of Nazareth for prayer and meditation. He was gradually becoming more self-conscious of the nature of his bestowal on earth.

126:1.2 (1387.2) This hill, a littl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previously, had been the “high place of Baal,” and now it was the site of the tomb of Simeon, a reputed holy man of Israel. From the summit of this hill of Simeon, Jesus looked out over Nazareth and the surrounding country. He would gaze upon Megiddo and recall the story of the Egyptian army winning its first great victory in Asia; and how, later on, another such army defeated the Judean king Josiah. Not far away he could look upon Taanach, where Deborah and Barak defeated Sisera. In the distance he could view the hills of Dothan, where he had been taught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눈을 돌리고, **아브라함**, **야곱**, 및 **아비멜렉**에 대한 전설을 혼자 회상해 봤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버지 **요셉**의 민족과 관계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건들을 마음 속에 회상했다.

그는 회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상급 독해{上級 讀解} 과정을 계속 밟았고, 집에서는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알맞은 나이가 되는 대로 그들의 교육도 계속 맡았다.

예수가 다음 해 8월에 15세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요셉**은 그가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해 초기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저축해 두기로 했다.

이 해가 시작될 때,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맏아들의 숙명에 대해 자주 의심을 품었다. 그는 진정으로 총명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지만, 몹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의 속을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게다가 그에게서 어떤 특출하거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자존심 강한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초인적이거나 기적적인 솜씨를 보여 주기를 오랫동안 숨죽이고 기다려왔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늘 비참할 정도의 실망으로 끝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용기를 잃게 했고, 심지어 낙담하게 했다. 당시의 독실한 신자들은, 선지자와 약속의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나타내고 신성한 권위를 세워야한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그 부모는 그의 장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더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나사렛 가정의 개선된 경제 조건이 가정생활에 여러 모로 반영됐고, 특히 목탄으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필기 석판으로 사용되는 흰 색 칠판의 숫자가 증가했다. 또한 **예수**는 음악 교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며;하프 연주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이 해 전체 기간은, **예수**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가족의 전망은 좋아보였고 장래는 밝았다.

2. 요셉의 죽음

운명적인 날인 9월 25일 화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날 **세포리**로부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요셉**이 총독의 관사에서 일하던 도중에 기중기{起重機}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는 비참

Joseph's brethren sold him into Egyptian slavery. He then would shift his gaze over to Ebal and Gerizim and recount to himself the traditions of Abraham, Jacob, and Abimelech. And thus he recalled and turned over in his mind the historic and traditional events of his father Joseph's people.

126:1.3 (1387.3) He continued to carry on his advanced courses of reading under the synagogue teachers, and he also continued with the home education of his brothers and sisters as they grew up to suitable ages.

126:1.4 (1387.4) Early this year Joseph arranged to set aside the income from his Nazareth and Capernaum property to pay for Jesus' long course of study at Jerusalem, it having been planned that he should go to Jerusalem in August of the following year when he would be fifteen years of age.

126:1.5 (1387.5) By the beginning of this year both Joseph and Mary entertained frequent doubts about the destiny of their first-born son. He was indeed a brilliant and lovable child, but he was so difficult to understand, so hard to fathom, and again, nothing extraordinary or miraculous ever happened. Scores of times had his proud mother stood in breathless anticipation, expecting to see her son engage in some superhuman or miraculous performance, but always were her hopes dashed down in cruel disappointment. And all this was discouraging, even disheartening. The devout people of those days truly believed that prophets and men of promise always demonstrated their calling and established their divine authority by performing miracles and working wonders. But Jesus did none of these things; wherefore was the confusion of his parents steadily increased as they contemplated his future.

126:1.6 (1387.6) The improved economic condition of the Nazareth family was reflected in many ways about the home and especially in the increased number of smooth white boards which were used as writing slates, the writing being done with charcoal. Jesus was also permitted to resume his music lessons; he was very fond of playing the harp.

126:1.7 (1387.7) Throughout this year it can truly be said that Jesus “grew in favor with man and with God.” The prospects of the family seemed good; the future was bright.

2. THE DEATH OF JOSEPH

126:2.1 (1388.1) All did go well until that fateful day of Tuesday, September 25, when a runner from Sepphoris brought to this Nazareth home the tragic news that Joseph had been severely injured

한 소식을, **나사렛** 가정에 전했다. **세포리**에서 온 심부름꾼은, **요셉**의 집으로 오는 길에 목공소에 들려서 **예수**에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마리아**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함께 집으로 달려갔다. **예수**는 즉시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 했으나, **마리아**는 자신이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 급해서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마리아**는 그때 열 살이던 **야고보**에게 **세포리**까지 같이 가자고 지시했고, **예수**에게는 그동안 집에 남아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어린 동생들을 돌보라고 지시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으로 옮겼고, 다음 날 선조들이 묻힌 곳에 장사지냈다.

전망이 좋았고 장래가 밝았던 바로 그때, 길으로 보기에 무자비한 어떤 작용이 이 **나사렛** 가정의 가장(家長)을 넘어뜨렸고, 이 가정의 관심사는 혼란에 빠졌으며, **예수**를 위한 모든 계획과 장래의 교육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막 열네 살 된 이 목수 소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성한 본성을 계시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탁임무를 완수해야 할 책임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어머니와 일곱 명의 동생--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른 동생--을 보살펴야 할 책임도, 떠맡게 됐음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족이 된 가족에게는, **나사렛**의 이 소년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자 위안이였다. 그리하여, **유란시아**의 자연 질서에 따라서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그러나 매우 교육적이고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이 일이, 운명이 정해진 이 젊은이에게 너무 일찍 맡겨지는 듯 보였으며, 이로써 **예수**는 한 인간 가족의 가장이 됐고, 동생들의 아버지가 됐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아버지 집, 즉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체험하게 되는, 그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가 됐다.

예수는 그렇게 갑자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 적어도 그의 생애에서 난국이 예상되는 하나의 큰 문제가 비극적으로 해결됐는데, --그는 이제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됐다. **예수**가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니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는 어린아이로부터도 항상 기꺼이 배우고자 했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권위를 인간적 출처에서 획득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어머니를 방문했던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으며; 공중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받던 날에야 **요한**에게서 이것을 듣게 됐다.

해가 지나면서, **나사렛**의 이 젊은 목수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모든 종교적 관습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분석했다: 그것은

by the falling of a derrick while at work on the governor's residence. The messenger from Sepphoris had stopped at the shop on the way to Joseph's home, informing Jesus of his father's accident, and they went together to the house to break the sad news to Mary. Jesus desired to go immediately to his father, but Mary would hear to nothing but that she must hasten to her husband's side. She directed that James, then ten years of age, should accompany her to Sepphoris while Jesus remained home with the younger children until she should return, as she did not know how seriously Joseph had been injured. But Joseph died of his injuries before Mary arrived. They brought him to Nazareth, and on the following day he was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126:2.2 (1388.2) Just at the time when prospects were good and the future looked bright, an apparently cruel hand struck down the head of this Nazareth household, the affairs of this home were disrupted, and every plan for Jesus and his future education was demolished. This carpenter lad, now just past fourteen years of age,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he had not only to fulfill the commission of his heavenly Father to reveal the divine nature on earth and in the flesh, but that his young human nature must als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his widowed mother and seven brothers and sisters — and another yet to be born. This lad of Nazareth now became the sole support and comfort of this so suddenly bereaved family. Thus were permitted those occurrences of the natural order of events on Urantia which would force this young man of destiny so early to assume these heavy but highly educational and disciplinary responsibilities attendant upon becoming the head of a human family, of becoming father to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of supporting and protecting his mother, of functioning as guardian of his father's home, the only home he was to know while on this world.

126:2.3 (1388.3) Jesus cheerfully accepted the responsibilities so suddenly thrust upon him, and he carried them faithfully to the end. At least one great problem and anticipated difficulty in his life had been tragically solved — he would not now be expected to go to Jerusalem to study under the rabbis. It remained always true that Jesus “sat at no man's feet.” He was ever willing to learn from even the humblest of little children, but he never derived authority to teach truth from human sources.

126:2.4 (1388.4) Still he knew nothing of the Gabriel visit to his mother before his birth; he only learned of this from John on the day of his baptism, at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126:2.5 (1388.5) As the years passed, this young carpenter of Nazareth increasingly measured every institution of society and every usage of

인간의 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는가?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이 젊은이는 오락 및 사교적 면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정열을 두 가지 목적에 점점 더 쏟아 부었는데: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해의 겨울 내내, **예수**가 타는 하프 소리를 즐기고, (굉장한 이야기꾼이었던 그 소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읽어주는 **그리스어** 성서를 듣기 위해서, 매일 밤 그의 집에 들르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됐다.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상당한 돈이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 사정은 꽤 순탄한 편이었다. **예수**는 예리한 사업상 판단력과 재정적 총명함이 있음을 일찍부터 나타냈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검소했으며; 절약하면서도 너그렘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예수**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의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마리아**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다. **요셉**은 가버렸다. **요셉**은 보통 찾아보기 힘든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그들 모두 그를 그리워했다. 더욱이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마지막 축복의 말도 듣지 못한 채 그가 죽었다는 생각에, 더욱 애처로워하는 듯했다.

3.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열다섯 살이 되던 이 해 중순에, **예수**는 가정의 경영을 완전히 떠맡게 됐다--우리는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라, 20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저축했던 돈은 거의 바닥났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웃인 **야곱**과 **요셉**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나사렛**에 있는 집들 가운데 하나를 처분할 처지에 놓였다.

서기 9년 4월 17일 수요일 밤에, 그 가정의 마지막 아기인 **룻**이 태어났고, **예수**는 이렇게 힘들고 특히 슬퍼하는 호된 시련의 기간에 처한 어머니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위로하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온갖 역량을 기울였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예수**가 **룻**을 돌본 것보다, 더 자기 딸을 귀하고 충실하게 사랑하고 양육한 아버지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였다.

이 해 동안, **예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구체화시켰는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기도문”**으로 알려지게 됐다. 어

religion by the unvarying test: What does it do for the human soul? does it bring God to man? does it bring man to God? While this youth did not wholly neglect the recreational and social aspects of life, more and more he devoted his time and energies to just two purposes: the care of his family and the preparation to do his Father's heavenly will on earth.

126:2.6 (1389.1) This year it became the custom for the neighbors to drop in during the winter evenings to hear Jesus play upon the harp, to listen to his stories (for the lad was a master storyteller), and to hear him read from the Greek scriptures.

126:2.7 (1389.2) The economic affairs of the family continued to run fairly smoothly as there was quite a sum of money on hand at the time of Joseph's death. Jesus early demonstrated the possession of keen business judgment and financial sagacity. He was liberal but frugal; he was saving but generous. He proved to be a wise and efficient administrator of his father's estate.

126:2.8 (1389.3) But in spite of all that Jesus and the Nazareth neighbors could do to bring cheer into the home, Mary, and even the children, were overcast with sadness. Joseph was gone. Joseph was an unusual husband and father, and they all missed him. And it seemed all the more tragic to think that he died ere they could speak to him or hear his farewell blessing.

3. THE FIFTEENTH YEAR (A.D. 9)

126:3.1 (1389.4) By the middle of this fifteenth year — and we are reckoning time in accordance with the twentieth-century calendar, not by the Jewish year — Jesus had taken a firm grasp upon the management of his family. Before this year had passed, their savings had about disappeared, and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he necessity of disposing of one of the Nazareth houses which Joseph and his neighbor Jacob owned in partnership.

126:3.2 (1389.5) On Wednesday evening, April 17, A.D. 9, Ruth, the baby of the family, was born, and to the best of his ability Jesus endeavored to take the place of his father in comforting and ministering to his mother during this trying and peculiarly sad ordeal. For almost a score of years (until he began his public ministry) no father could have loved and nurtured his daughter any more affectionately and faithfully than Jesus cared for little Ruth. And he was an equally good father to all th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126:3.3 (1389.6) During this year Jesus first formulated the prayer which he subsequently taught to his apostles, and which to many has

면 면에서 그것은 가족 제단이 진화된 것이었으며;그들에게는 여러 찬식과 공식 기도문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예수**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처럼--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나이 든 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고, 암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기도 형식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다. **예수**는 나이 든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수고스럽게 격려하면서, 제시된 문구를 그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곧 자신의 역할 없이도, 자신이 그들을 가르쳤던 함축성 있는 이 구절들로 주로 만들어진 기도 형식을, 모두가 사용하게 되도록 애썼다.

마침내 **예수**는, 가족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고, 10월 어느 날 저녁에, 돌로 만든 낮은 탁자 위 작은 등잔 옆에 앉아서, 약 18인치 되는 매끄러운 정사각형 나무판 위에 목탄으로 기도문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규격화된 가족 청원기도가 됐다.

이 해에 **예수**는 혼란스런 생각들로 무척 괴로워했다. **예루살렘**에 출현하여, “**아버지**의 일이 임박했다”고 그에게 일러준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든지 즉시 실행에 옮기려던 모든 생각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됐다. **예수**는 이 세상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보다 선행돼야 한다고;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째 책무라고, 올바르게 추론했다.

이 해를 지내면서, **예수**는 소위 **에녹서**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유란시아** 중역 사명을 표현하는 호칭으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따오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 관념을 면밀히 검토했고, 자신은 결코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민족을 돕기를 갈망했지만, **유대인**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틴**을 점령한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좌에 앉지 않을 것을 알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의 영적 구원이나 도덕적 선생으로 국한 된다고 믿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애타게 기다리던, **히브리** 성서 가운데 가상의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적어도 **유대인**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했던 것과는 달랐다. 마찬가지로, 그는 **선지자 다니엘**이 묘사한 그런 **사람의 아들**로서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아갈 때가 오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을까?

become known as “The Lord’s Prayer.” In a way it was an evolution of the family altar; they had many forms of praise and several formal prayers. After his father’s death Jesus tried to teach the older children to express themselves individually in prayer — much as he so enjoyed doing — but they could not grasp his thought and would invariably fall back upon their memorized prayer forms. It was in this effort to stimulate his older brothers and sisters to say individual prayers that Jesus would endeavor to lead them along by suggestive phrases, and presently, without intention on his part, it developed that they were all using a form of prayer which was largely built up from these suggestive lines which Jesus had taught them.

126:3.4 (1389.7) At last Jesus gave up the idea of having each member of the family formulate spontaneous prayers, and one evening in October he sat down by the little squat lamp on the low stone table, and, on a piece of smooth cedar board about eighteen inches square, with a piece of charcoal he wrote out the prayer which became from that time on the standard family petition.

126:3.5 (1389.8) This year Jesus was much troubled with confused thinking. Family responsibility had quite effectively removed all thought of immediately carrying out any plan for responding to the Jerusalem visitation directing him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Jesus rightly reasoned that the watchcare of his earthly father’s family must take precedence of all duties; that the support of his family must become his first obligation.

126:3.6 (1390.1) In the course of this year Jesus found a passage in the so-called Book of Enoch which influenced him in the later adoption of the term “Son of Man” as a designation for his bestowal mission on Urantia. He had thoroughly considered the idea of the Jewish Messiah and was firmly convinced that he was not to be that Messiah. He longed to help his father’s people, but he never expected to lead Jewish armies in overthrowing the foreign domination of Palestine. He knew he would never sit on the throne of David at Jerusalem. Neither did he believe that his mission was that of a spiritual deliverer or moral teacher solely to the Jewish people. In no sense, therefore, could his life mission be the fulfillment of the intense longings and supposed Messianic prophecies of the Hebrew scriptures; at least, not as the Jews understood these predictions of the prophets. Likewise he was certain he was never to appear as the Son of Man depicted by the Prophet Daniel.

126:3.7 (1390.2) But when the time came for him to go forth as a world teacher, what would he call himself? What claim should he make concerning his mission? By what name would he be called by the people who would become believers in his teachings?

그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마음 속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묵시적 책들 가운데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발견했으며; 그것이 옛 **에녹**이 쓴 것이 아님을 확신했지만, 그의 흥미를 매우 끌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한 구절이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이 **에녹서**의 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 묘사했고, 이 **사람의 아들**은 그가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만유의 **아버지**인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런 뜰을 거닐었으며; 불쌍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고 설명했다. **예수**가 이런 구절들을 읽었을 때, (**동방**의 여러 신비주의가 이 교훈에 섞여 들어가게 된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잘 이해하면서) **히브리** 성서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부분과, **유대인** 구원자에 관한 모든 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이 **에녹서** 안에 모아진 이 이야기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심정으로 응답하고 정신으로 인정했으며; 그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취임 직함으로서 “**사람의 아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공적 업무를 시작했을 때 이것을 실행했다. **예수**는 진리가 어떤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역량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채택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 무렵, 그는 앞으로 세상을 위해 할 많은 일에 관해서 이미 철저히 정리해 뒀지만, 자기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굳게 갖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젊은 시절의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임하는”--곧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본성을 온 인류에게 설명하는--, 자신의 이 세상 사명의 본질에 관한 어떤 것을 확정하면서, 민족적 구원자, 즉 **유대인**의 선생 혹은 왕의 출현에 관해 기록한 **성서** 가운데 많은 구절을 다시 숙고하기 시작했다. 이 예언들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그는 비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했고; 아버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수**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본성과 사명을 혼동했던 것일까?

결국, 어머니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을까? 과거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어머니가 옳다고 판명됐었다. 그가 새 선생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런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까?; 그리고 더욱이, 이 **유대인 메시아**와 자신은 어

126:3.8 (1390.3) While turning all these problems over in his mind, he found in the synagogue library at Nazareth, among the apocalyptic books which he had been studying, this manuscript called “The Book of Enoch”; and though he was certain that it had not been written by Enoch of old, it proved very intriguing to him, and he read and reread it many times. There was one passage which particularly impressed him, a passage in which this term “Son of Man” appeared. The writer of this so-called Book of Enoch went on to tell about this Son of Man, describing the work he would do on earth and explaining that this Son of Man, before coming down on this earth to bring salvation to mankind, had walked through the courts of heavenly glory with his Father, the Father of all; and that he had turned his back upon all this grandeur and glory to come down on earth to proclaim salvation to needy mortals. As Jesus would read these passages (well understanding that much of the Eastern mysticism which had become admixed with these teachings was erroneous), he responded in his heart and recognized in his mind that of all the Messianic predictions of the Hebrew scriptures and of all the theories about the Jewish deliverer, none was so near the truth as this story tucked away in this only partially accredited Book of Enoch; and he then and there decided to adopt as his inaugural title “the Son of Man.” And this he did when he subsequently began his public work. Jesus had an unerring ability for the recognition of truth, and truth he never hesitated to embrace, no matter from what source it appeared to emanate.

126:3.9 (1390.4) By this time he had quite thoroughly settled many things about his forthcoming work for the world, but he said nothing of these matters to his mother, who still held stoutly to the idea of his being the Jewish Messiah.

126:3.10 (1390.5) The great confusion of Jesus' younger days now arose. Having settled something about the nature of his mission on earth,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 to show forth his Father's loving nature to all mankind — he began to ponder anew the many statements in the Scriptures referring to the coming of a national deliverer, a Jewish teacher or king. To what event did these prophecies refer? Was not he a Jew? or was he? Was he or was he not of the house of David? His mother averred he was; his father had ruled that he was not. He decided he was not. But had the prophets confused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Messiah?

126:3.11 (1391.1) After all, could it be possible that his mother was right? In most matters, when differences of opinion had arisen in the past, she had been right. If he were a new teacher and *not* the Messiah, then how should he recognize the Jewish Messiah if such a one should appear in Jerusalem during the time of his earth mission;

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가 사명을 착수한 후에는, 가족과, **유대** 민족 및 종교와,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 및 그들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덟 명의 배고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목공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동안, 이 젊은 **갈릴리인**은 이런 중대한 문제 하나하나를 마음 속에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숙고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마리아**는 가족 기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다. **마리아**는 비둘기 파는 일을 **야고보**에게 넘겼다. 그들은 이윽고 두 번째 암소를 구입했고, **미리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사렛**의 이웃에게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예수의 긴 기간의 묵상,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자주 가는 여행, 그리고 때때로 그가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많은 착상 등으로 인해, 어머니는 몹시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때로는 아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럴 때마다,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서 결국 다른 소년들과는 어떤 면에서든지 다를 것임을 기억해냄으로써, 두려움을 안정시키곤 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자기 생각을 전부 말하고 자기 이상 {理想}을 전부 제시하는 것을 삼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 해부터 계속, **예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고,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했음에도, 겉으로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고 통상적인 모습이 됐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를 갈망했지만, 그의 문제는 인간 동료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이렇게 유별난 상황의 독특성이, 그에게 자기 짐을 홀로 지도록 강요했다.

4.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예수**는 **안식일**에 정식으로 회당의 설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예수**는, 연설자가 없을 경우에 **성서**를 읽어달라는 청을 전에도 여러 번 받았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서, 그가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날이 됐다. 따라서 열다섯 번째 생일이 지난 후 첫 **안식일**에, 카잔은 그날 아침 회당 예배 순서를 **예수**가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나사렛**에 있는 모든 신자가 모인 가운데, 이 젊은이는 일어서서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을 선택해서 읽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and, further, what should be his relation to this Jewish Messiah? And what should be his relation, after embarking on his life mission, to his family? to the Jewish commonwealth and religion? to the Roman Empire? to the gentiles and their religions? Each of these momentous problems this young Galilean turned over in his mind and seriously pondered while he continued to work at the carpenter's bench, laboriously making a living for himself, his mother, and eight other hungry mouths.

126:3.12 (1391.2) Before the end of this year Mary saw the family funds diminishing. She turned the sale of doves over to James. Presently they bought a second cow, and with the aid of Miriam they began the sale of milk to their Nazareth neighbors.

126:3.13 (1391.3) His profound periods of meditation, his frequent journeys to the hilltop for prayer, and the many strange ideas which Jesus advanced from time to time, thoroughly alarmed his mother. Sometimes she thought the lad was beside himself, and then she would steady her fears, remembering that he was, after all, a child of promise and in some manner different from other youths.

126:3.14 (1391.4) But Jesus was learning not to speak of all his thoughts, not to present all his ideas to the world, not even to his own mother. From this year on, Jesus' disclosures about what was going on in his mind steadily diminished; that is, he talked less about those things which an average person could not grasp, and which would lead to his being regarded as peculiar or different from ordinary folks. To all appearances he became commonplace and conventional, though he did long for someone who could understand his problems. He craved a trustworthy and confidential friend, but his problems were too complex for his human associates to comprehend. The uniqueness of the unusual situation compelled him to bear his burdens alone.

4. FIRST SERMON IN THE SYNAGOGUE

126:4.1 (1391.5) With the coming of his fifteenth birthday, Jesus could officially occupy the synagogue pulpit on the Sabbath day. Many times before, in the absence of speakers, Jesus had been asked to read the Scriptures, but now the day had come when, according to law, he could conduct the service. Therefore on the first Sabbath after his fifteenth birthday the chazan arranged for Jesus to conduct the morning service of the synagogue. And when all the faithful in Nazareth had assembled, the young man, having made his selection of Scriptures, stood up and began to read:

126:4.2 (1391.6)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기 위함이며; 그가 나를 보내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 **주**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곳에, 그가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주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눈 앞에서 너희 행함의 악을 멀리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줘라. 아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세상 만물의 **주** 앞에 경배할까? 내가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갖고 그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수만 마리의 양, 아니면 강 같이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맡아 들을, 내 혼의 죄를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다! 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지구의 궤도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볼 것이며, 누가 숫자대로 그들의 무리를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를 보라. 자신의 크신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느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 줄 것이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요,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택했으니, 이는 너희 모두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영원자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내가 **주**이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읽은 다음에, 그가 자리에 앉았으며, 사람들은 **예수**가 그토록 우아하게 읽어왔던 문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렇게 엄숙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며; 그토록 열성적이고 진지한 목소리를 들

me, for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meek,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set the spiritual prisoners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God's favor and the day of our God's reckoning; to comfort all mourners, to give them beauty for ashes, the oil of joy in the place of mourning, a song of praise instead of the spirit of sorrow, that they may be called tree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wherewith he may be glorified.

126:4.3 (1392.1) “Seek good and not evil that you may live, and so the Lord, the God of hosts, shall be with you. Hate the evil and love the good; establish judgment in the gate. Perhaps the Lord God will be gracious to the remnant of Joseph.

126:4.4 (1392.2)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put away the evil of your doing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and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lieve the oppressed. Defend the fatherless and plead for the widow.

126:4.5 (1392.3) “Wherewith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to bow myself before the Lord of all the earth?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rams, ten thousands of sheep, or with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No! for the Lord has showed us, O me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eal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126:4.6 (1392.4) “To whom, then, will you liken God who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Lift up your eyes and behold who has created all these worlds, who brings forth their host by number and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He does all these things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 and because he is strong in power, not one fails. He gives power to the weak, and to those who are weary he increases strength.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I will help you; yes, I will uphold you with the right hand of my righteousness, for I am the Lord your God. And I will hold your right hand, saying to you, fear not, for I will help you.

126:4.7 (1392.5) “And you are my witness, say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all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the Eternal. I, even I, am the Lord, and beside me there is no savior.”

126:4.8 (1392.6) And when he had thus read, he sat down, and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pondering over the words which he had so graciously read to them. Never had his townspeople seen him so magnificently solemn;

어본 적이 없었으며;그토록 어른스럽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야고보**를 데리고 **나사렛**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두 장의 매끈한 나무판에, 목탄을 사용해서 **그리스어**로 **십계명**을 썼다. **마르다**는 나중에 이 판들에 색칠하고 장식했으며, 이것들은 **야고보**의 작은 작업장 벽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

5. 경제적인 악전고투

예수와 그 가족은 점차 초기의 단순한 생활로 돌아갔다. 그들의 옷과 음식까지도 간소해졌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치즈는 풍부했다. 제 철이 되면, 집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달이 거둬질수록 더 많은 절약이 필요해졌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매우 간단했으며;가장 좋은 음식은 저녁을 위해서 남겨뒀다. 그러나 **유대인** 세계에서는 이런 재산의 결핍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열등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소년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잘 납득했다. 그가 가정과 들과 작업장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는, 그의 차후 교훈 속에 잘 나타나며, 그의 교훈은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조예가 깊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위대한 선생이 되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믿음에 계속 연연했다.

경륜을 위한 **예수**의 모든 계획은 외견상 좌절됐다. 이때 진행되는 상태로는 미래도 밝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으며;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당면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 **예수**의 생애는, 낙담한 모든 이상주의자들에게 끝없는 위안을 준다.

평범한 일용직{日傭職}_노동자 목수의 임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 해 말쯤에 **예수**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 까지 일해서, 하루에 25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해가 되자, 그들에게는 회당 헌금과 반 세겔의 성전 세금은 그만 두고라도,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조차 힘들어져서, 이 해에, 세금 징수원은 **예수**로부터 돈을 더 거두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의 하프를 빼어가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예수는, **그리스어** 성서 사본이 세금 징수원에게 발각되어 압수당할까 염려해서, 열다섯 번째 생일에 자신의 성인식을 기념하여, **주께** 바치는 헌물로서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 기증했다.

never had they heard his voice so earnest and so sincere; never had they observed him so manly and decisive, so authoritative.

126:4.9 (1392.7) This Sabbath afternoon Jesus climbed the Nazareth hill with James and, when they returned home, wrote out the Ten Commandments in Greek on two smooth boards in charcoal. Subsequently Martha colored and decorated these boards, and for long they hung on the wall over James's small workbench.

5. THE FINANCIAL STRUGGLE

126:5.1 (1392.8) Gradually Jesus and his family returned to the simple life of their earlier years. Their clothes and even their food became simpler. They had plenty of milk, butter, and cheese. In season they enjoyed the produce of their garden, but each passing month necessitated the practice of greater frugality. Their breakfasts were very plain; they saved their best food for the evening meal. However, among these Jews lack of wealth did not imply social inferiority.

126:5.2 (1392.9) Already had this youth well-nigh encompassed the comprehension of how men lived in his day. And how well he understood life in the home, field, and workshop is shown by his subsequent teachings, which so repletely reveal his intimate contact with all phases of human experience.

126:5.3 (1392.10) The Nazareth chazan continued to cling to the belief that Jesus was to become a great teacher, probably the successor of the renowned Gamaliel at Jerusalem.

126:5.4 (1393.1) Apparently all Jesus' plans for a career were thwarted. The future did not look bright as matters now developed. But he did not falter; he was not discouraged. He lived on, day by day, doing well the present duty and faithfully discharging the *immediate* responsibilities of his station in life. Jesus' life is the everlasting comfort of all disappointed idealists.

126:5.5 (1393.2) The pay of a common day-laboring carpenter was slowly diminishing. By the end of this year Jesus could earn, by working early and late, only the equivalent of about twenty-five cents a day. By the next year they found it difficult to pay the civil taxes, not to mention the synagogue assessments and the temple tax of one-half shekel. During this year the tax collector tried to squeeze extra revenue out of Jesus, even threatening to take his harp.

126:5.6 (1393.3) Fearing that the copy of the Greek scriptures might be discovered and confiscated by the tax collectors, Jesus, on his fifteenth birthday, presented it to the Nazareth synagogue library as his maturity offering to the Lord.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요셉**이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그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헤롯**에게 제출했던 문제에 관한 판결을 받으려고, **예수가 세포리**로 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세포리**의 재정 담당자가 약소한 액수를 제시했을 때, **예수와 마리아**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헤롯**에게 직접 진정서를 냈었고, 이제 **예수**는 궁전 안에 서서,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 그가 받아야 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헤롯**의 판결을 듣게 됐다. 그런 부당한 결정 때문에, **예수**는 그 후로 **헤롯 안티파스**를 결코 다시 신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헤롯**을 “저 여우”라고 언급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해와 다음 해 동안에, **예수**는 목공소 작업대를 떠날 수 없었던 관계로, 대상{隊商} 여행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작업장은 이미 삼촌에게 넘어갔으므로, **예수**는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다 같이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마리아**를 가까이서 도왔다. 이 무렵에, 그는 대상들이 모이는 장소로 **야고보**를 보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오게 함으로, 당시의 소식과 계속 접촉하려고 애썼다.

그는 성인으로 자라면서, 그 나이 또래의 보통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갈등과 혼란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혹독한 체험은, 그가 무의미한 명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신비적인 경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줬다.

예수가 자기 집 바로 북쪽에 상당히 넓은 땅을 세내어 가족의 밭을 일궈던 일도 이 해에 있었고, 작은 밭을 꾸밀 수 있도록 가족에게 분할했다. 나이 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몫의 밭을 갖게 했고, 그들은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열심히 경쟁했다. 채소를 기르는 시기에는, 그들의 만행이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밭에서 함께 보냈다. 밭에서 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는 그들이 시골로 가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사는 농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 번 마음에 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골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으며,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완전한 실용주의자였던 젊은 **예수**는, 문제가 일어나는 대로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대처했고,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 상황에 맞춰 나가는 일에, 그리고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소원이 가능한 한 최고의 만족감을 얻도록 자신들의 상황을 적응시키는 일에,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했다.

예수는 한때, 아버지가 **헤롯**의 궁전을 지으면서 받아야 할 상당한 돈을 받게 되면, 작은 농장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증금이 되리라는 가느다란

126:5.7 (1393.4) The great shock of his fifteenth year came when Jesus went over to Sepphoris to receive the decision of Herod regarding the appeal taken to him in the dispute about the amount of money due Joseph at the time of his accidental death. Jesus and Mary had hoped for the receipt of a considerable sum of money when the treasurer at Sepphoris had offered them a paltry amount. Joseph's brothers had taken an appeal to Herod himself, and now Jesus stood in the palace and heard Herod decree that his father had nothing due him at the time of his death. And for such an unjust decision Jesus never again trusted Herod Antipas.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once alluded to Herod as “that fox.”

126:5.8 (1393.5) The close work at the carpenter's bench during this and subsequent years deprived Jesus of the opportunity of mingling with the caravan passengers. The family supply shop had already been taken over by his uncle, and Jesus worked altogether in the home shop, where he was near to help Mary with the family. About this time he began sending James up to the camel lo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world events, and thus he sought to keep in touch with the news of the day.

126:5.9 (1393.6) As he grew up to manhood, he passed through all those conflicts and confusions which the average young persons of previous and subsequent ages have undergone. And the rigorous experience of supporting his family was a sure safeguard against his having overmuch time for idle meditation or the indulgence of mystic tendencies.

126:5.10 (1393.7) This was the year that Jesus rented a considerable piece of land just to the north of their home, which was divided up as a family garden plot. Each of the older children had an individual garden, and they entered into keen competition in their agricultural efforts. Their eldest brother spent some time with them in the garden each day during the season of vegetable cultivation. As Jesus worked with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garden, he many times entertained the wish that they were all located on a farm out in the country where they could enjoy the liberty and freedom of an unhampered life. But they did not find themselves growing up in the country; and Jesus, being a thoroughly practical youth as well as an idealist, intelligently and vigorously attacked his problem just as he found it, and did everything within his power to adjust himself and his family to the realities of their situation and to adapt their condition to the highest possible satisfaction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longings.

126:5.11 (1393.8) At one time Jesus faintly hoped that he might be able to gather up sufficient means, provided they could collect the considerable sum

희망을 가졌었다. 그는 실제로 가족을 시골로 이사시키는 계획을 심각하게 생각해 뒀었다. 그러나 **헤롯**이 **요셉**에게 쥘야할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시골에서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그들은 이제 비둘기 외에, 세 마리의 소, 네 마리의 양, 닭 몇 마리, 한 마리의 당나귀, 그리고 한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농장 생활의 체험을 즐기고자 궁리했다. 이 **나사렛** 가정생활의 특징인, 규율이 잘 잡힌 관리 요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작은 아이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주어졌다.

열다섯 살이 되던 이 해가 끝나면서, **예수**는 인간 체험에서 그토록 위험스럽고 어려웠던 기간을 마무리했는데, 이 기간은 비교적 더 만족스럽게 보낸 어린 시절과, 다가오는 청년기에 대한 의식 사이의 과도기였으며, 청년기에는 고상한 성품을 발달시키는 진보된 체험을 획득하기 위한 책임과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정신과 육체의 성장기가 끝났고, 이제 이 **나사렛** 젊은이의 진짜 생애가 시작됐다.

of money due his father for work on Herod's palace, to warrant undertaking the purchase of a small farm. He had really given serious thought to this plan of moving his family out into the country. But when Herod refused to pay them any of the funds due Joseph, they gave up the ambition of owning a home in the country. As it was, they contrived to enjoy much of the experience of farm life as they now had three cows, four sheep, a flock of chickens, a donkey, and a dog, in addition to the doves. Even the little tots had their regular duties to perform in the well-regulated scheme of management which characterized the home life of this Nazareth family.

126:5.12 (1394.1) With the close of this fifteenth year Jesus completed the traversal of that dangerous and difficult period in human existence, that time of transition between the more complacent years of childhood and the consciousness of approaching manhood with its increased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the acquirement of advance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a noble character. The growth period for mind and body had ended, and now began the real career of this young man of Nazareth.

제127편. 청년 시절

⇨ 126

유란시아 책

128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7편
청년 시절

섹션

소개

1. 열여섯 살 되던 해 (서기 10년)
2. 열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1년)
3. 열여덟 살 되던 해 (서기 12년)
4. 열아홉 살 되던 해 (서기 13년)
5. 에스라의 딸 리브가
6. 스무 살 되던 해 (서기 14년)

PAPER 127
THE ADOLESCENT YEA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ixteenth Year (A.D. 10)
2. The Seventeenth Year (A.D. 11)
3. The Eighteenth Year (A.D. 12)
4. The Nineteenth Year (A.D. 13)
5. Rebecca, the Daughter of Ezra
6. His Twentieth Year (A.D. 14)

소개

청년 시절로 접어들었을 때, **예수**는 대 가족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가 돼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재산은 바닥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재(先在)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식하게 됐고; 동시에, **낙원 아버지**를 사람 자녀들에게 계시하는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음을, 더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세상 또는 다른 어떤 세상에든지, 이제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청년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복잡한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어떤 소년도, **예수**가 15세에서 20세까지의 격렬한 세월 동안 견뎌던 것보다 더 심한, 시험적 갈등 또는 더 쓰라린 상황을 체험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악에 휩싸이고 죄로 인해 혼란스런 세상에서, 이런 청년 시절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네바돈**에 있는 모든 영역의 소년이 체험하는 생활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됐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지방우주 전역에 두루, 모든 세대와 모든 세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그

INTRODUCTION

127:0.1 (1395.1) AS JESUS entered upon his adolescent years, he found himself the head and sole support of a large family. Within a few years after his father's death all their property was gone. As time passed, he became increasingly conscious of his pre-existence; at the same time he began more fully to realize that he was present on earth and in the flesh for the express purpose of revealing his Paradise Father to the children of men.

127:0.2 (1395.2) No adolescent youth who has lived or ever will live on this world or any other world has had or ever will have more weighty problems to resolve or more intricate difficulties to untangle. No youth of Urantia will ever be called upon to pass through more testing conflicts or more trying situations than Jesus himself endured during those strenuous years from fifteen to twenty.

127:0.3 (1395.3) Having thus tasted the actual experience of living these adolescent years on a world beset by evil and distraught by sin, the Son of Man became possessed of full knowledge about the life experience of the youth of all the realms of Nebadon, and thus forever he became the understanding refuge for the distressed and

들을 이해하는 보호자가 됐다.

이 신성한 **아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자, 즉 지방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의 창조된 지성 존재들의 절대 최상급 통치자요, 모든 세대의 존재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재능 및 체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보호자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고 있었다.

1. 열여섯 살 되던 해 (서기 10년)

육신화 한 **아들**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평온하게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린 시절과 젊은 성년기 사이의, 곤란하고 건디기 어려웠던 전환 단계에서 벗어나게 됐다--청년 **예수**가 됐다.

이 해에 그는 온전한 육체 성장을 달성했다. 그는 남성답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점점 더 침착하고 진지하게 됐지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그의 눈은 온유했으나 예리했으며; 그의 미소는 항상 매력적이고 위안을 줬다. 그의 목소리는 고왔으나 위엄이 있었으며; 그의 인사말은 정중했으나 소박했다. 가장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인간적이고 신성한 양면적 본성이 맞닿아 있다는 증거가, 항상 보이는 듯했다. 그는 언제나 동정심이 있는 친구와 위엄을 갖춘 선생, 이 두 성품이 잘 배합돼 있음을 나타냈다. 이런 인격 특징은, 그가 청년 시절이었음에도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인간적 지능 또한 온전한 성장을 이룩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온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런 지적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이룩했다. 그는 건장하고 잘 균형 잡힌 육신, 예리하고 분석적인 정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성향, 어느 정도 유연성 있지만 적극적인 기질을 가졌으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강하고 뛰어나며 매력적인 한 인격체를 구성하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그를 이해하기 힘들어졌으며; 그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당황했고, 그의 행동을 잘못 해석했다. 만형이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로 운명이 정해졌음을,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으므로, 그들 모두는 그의 생애를 납득하기 힘들었다. 가족들만 알아야 하는 그런 비밀을 그들이 **마리아**에게서 듣고 난 후에, **예수**가 그런 모든 관념이나 의도를 명백하게 부정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라.

이 해에 **시몬**이 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집을 팔아야 했다. 이제는 **야고보**가 세 여동생을 맡아서 가르치게 됐는데, 그 중

perplexed adolescents of all ages and on all worlds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127:0.4 (1395.4) Slowly, but certainly and by actual experience, this divine Son is *earning* the right to become sovereign of his universe, the unquestioned and supreme ruler of all created intelligences on all local universe worlds, the understanding refuge of the beings of all ages and of all degrees of personal endowment and experience.

1. THE SIXTEENTH YEAR (A.D. 10)

127:1.1 (1395.5) The incarnated Son passed through infancy and experienced an uneventful childhood. Then he emerged from that testing and trying transition stage between childhood and young manhood — he became the adolescent Jesus.

127:1.2 (1395.6) This year he attained his full physical growth. He was a virile and comely youth. He became increasingly sober and serious, but he was kind and sympathetic. His eye was kind but searching; his smile was always engaging and reassuring. His voice was musical but authoritative; his greeting cordial but unaffected. Always, even in the most commonplace of contacts, there seemed to be in evidence the touch of a twofold nature, the human and the divine. Ever he displayed this combination of the sympathizing friend and the authoritative teacher. And these personality traits began early to become manifest, even in these adolescent years.

127:1.3 (1395.7) This physically strong and robust youth also acquired the full growth of his human intellect, not the full experience of human thinking but the fullness of capacity for such intellectual development. He possessed a healthy and well-proportioned body, a keen and analytical mind, a kind and sympathetic disposition, a somewhat fluctuating but aggressive temperament, all of which were becoming organized into a strong, striking, and attractive personality.

127:1.4 (1396.1) As time went on, it became more difficult for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nd sisters to understand him; they stumbled over his sayings and misinterpreted his doings. They were all unfitted to comprehend their eldest brother's life because their mother had given them to understand that he was destined to become the deliverer of the Jewish people. After they had received from Mary such intimations as family secrets, imagine their confusion when Jesus would make frank denials of all such ideas and intentions.

127:1.5 (1396.2) This year Simon started to school, and they were compelled to sell another house. James now took charge of the teaching of his three sisters, two of whom were old enough to

에 두 여동생은 진지하게 공부할 나이가 됐다. **룻**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곧 **미리암**과 **마르다**가 **룻**을 돌봤다. **유대인**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대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와 똑같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어머니도 동의했으나), 회당 학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학교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 해 내내, **예수**는 작업대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일거리가 많았으며; 숨씨가 뛰어났으므로 그 지역에서 아무리 일이 줄어들어도, 그에게는 한가히 지낼 시간이 없었다. 어떤 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가 그를 돕기도 했다.

이 해 말쯤에, 가족을 양육해서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진리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자로서,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들이 고대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제까지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어머니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으므로, 그리고 아버지도 어떤 말로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생각났으므로, 어머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 이 해부터, 어머니에게 또는 다른 누구에게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사명이 너무 특수했으므로, 그것의 실행에 관해서 그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가 정말로 어렸지만 가족에게는 한 아버지였으며; 가능한 모든 시간을 동생들과 보내려 노력했고,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머니는 그토록 힘들게 일하는 그를 보면서 비통해 했으며; 그들이 그토록 철저히 계획했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는 대신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목공소에서 매일같이 일하게 된 것을 슬퍼했다. **마리아**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지만, 그를 매우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서 맡겨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태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다.

2. 열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1년)

이 무렵,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항하는 반역에 가담하는 심각한 소동이,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강한 민족주의자 분파가 생겨나고 있었다. **바리새파**와는 달리, **열심당**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 반란을 통해서 결론 낼 것을 제안했다.

한 무리의 조직원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도착했고, 그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나

begin serious study. As soon as Ruth grew up, she was taken in hand by Miriam and Martha. Ordinarily the girls of Jewish families received little education, but Jesus maintained (and his mother agreed) that girls should go to school the same as boys, and since the synagogue school would not receive them, there was nothing to do but conduct a home school especially for them.

127:1.6 (1396.3) Throughout this year Jesus was closely confined to the workbench. Fortunately he had plenty of work; his was of such a superior grade that he was never idle no matter how slack work might be in that region. At times he had so much to do that James would help him.

127:1.7 (1396.4) By the end of this year he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after rearing his family and seeing them married, enter publicly upon his work as a teacher of truth and as a revealer of the heavenly Father to the world. He knew he was not to become the expected Jewish Messiah, and he concluded that it was next to useless to discuss these matters with his mother; he decided to allow her to entertain whatever ideas she might choose since all he had said in the past had made little or no impression upon her and he recalled that his father had never been able to say anything that would change her mind. From this year on he talked less and less with his mother, or anyone else, about these problems. His was such a peculiar mission that no one living on earth could give him advice concerning its prosecution.

127:1.8 (1396.5) He was a real though youthful father to the family; he spent every possible hour with the youngsters, and they truly loved him. His mother grieved to see him work so hard; she sorrowed that he was day by day toiling at the carpenter's bench earning a living for the family instead of being, as they had so fondly planned, at Jerusalem studying with the rabbis. While there was much about her son that Mary could not understand, she did love him, and she most thoroughly appreciated the willing manner in which he shouldered the responsibility of the home.

2. THE SEVENTEENTH YEAR (A.D. 11)

127:2.1 (1396.6) At about this time there was considerable agitation, especially at Jerusalem and in Judea, in favor of rebellion against the payment of taxes to Rome. There was coming into existence a strong nationalist party, presently to be called the Zealots. The Zealots, unlike the Pharisees, were not willing to await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y proposed to bring things to a head through political revolt.

127:2.2 (1396.7) A group of organizers from Jerusalem arrived in Galilee and were making good headway

사렛까지 왔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주의 깊게 듣고 많이 질문했으나, 그 당에 참여하기는 거절했다. 그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밝히기를 사양했고, 그의 거절은 **나사렛**에 있는 젊은 동료들 가운데 다수가 가담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다.

마리아가 그를 설득해서 참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마리아**는,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라는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지만; 이런 암시에, 그는 단지 어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예수의 외삼촌 가운데 한 사람(곧 **마리아**의 형제인 **시몬**)이 이미 이 집단에 가입했고,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임원이 됐다. 그래서 **예수**와 외삼촌은 여러 해 동안 약간 서먹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불화가 **나사렛**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놓고, 그 도시의 **유대인** 젊은이들 사이에 꽤가 갈리는 결과가 발생했다. 절반가량의 젊은이는 민족주의자 조직에 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온건한 애국자 집단을 만들어서, **예수**가 그들의 지도자가 돼주기를 바랐다. **예수**에게 이런 명예로운 직위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사양하자, 그들은 몹시 놀랐지만, 모두 수긍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대인** 갑부 **이삭**이, **예수**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에 있는 이 애국자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나서자,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때 거의 열일곱 살이 된 **예수**는, 자신의 생애 초기에 가장 미묘하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하나에 직면하게 됐다. 애국심의 문제는, 특히 세금을 징수하려는 외국의 압제자들과 뒤얽힌 경우에,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을 거기에 직접 관계시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려는 선동(煽動)에 **유대** 종교가 연관돼 있었으므로, 감절이나 더 어려웠다.

예수의 입장은,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그에게 민족주의자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했으므로 더 어렵게 됐다. 대부분의 **나사렛 유대인**이 등록했고, 이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예수**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두 등록하려고 했다. **나사렛**에서 그의 유일한 지혜로운 상담자인, 전에 그를 가르쳤던 카잔이, **나사렛** 시민 위원회가 미리 짜놓은 대중적 간청에 대답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왔을 때, 그가 할 대답에 관해 조언해 줬다. **예수**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until they reached Nazareth. When they came to see Jesus, he listened carefully to them and asked many questions but refused to join the party. He declined fully to disclose his reasons for not enlisting, and his refusal had the effect of keeping out many of his youthful fellows in Nazareth.

127:2.3 (1397.1) Mary did her best to induce him to enlist, but she could not budge him. She went so far as to intimate that his refusal to espouse the nationalist cause at her behest was insubordination, a violation of his pledge made upon their return from Jerusalem that he would be subject to his parents; but in answer to this insinuation he only laid a kindly hand on her shoulder and, looking into her face, said: “My mother, how could you?” And Mary withdrew her statement.

127:2.4 (1397.2) One of Jesus’ uncles (Mary’s brother Simon) had already joined this group, subsequently becoming an officer in the Galilean division. And for several years there was something of an estrangement between Jesus and his uncle.

127:2.5 (1397.3) But trouble began to brew in Nazareth. Jesus’ attitude in these matters had resulted in creating a division among the Jewish youths of the city. About half had joined the nationalist organization, and the other half began the formation of an opposing group of more moderate patriots, expecting Jesus to assume the leadership. They were amazed when he refused the honor offered him, pleading as an excuse his heavy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they all allowed. But the situation was still further complicated when, presently, a wealthy Jew, Isaac, a moneylender to the gentiles, came forward agreeing to support Jesus’ family if he would lay down his tools and assume leadership of these Nazareth patriots.

127:2.6 (1397.4) Jesus, then scarcely seventeen years of age, was confronted with one of the most delicate and difficult situations of his early life. Patriotic issues, especially when complicated by tax-gathering foreign oppressors, are always difficult for spiritual leaders to relate themselves to, and it was doubly so in this case since the Jewish religion was involved in all this agitation against Rome.

127:2.7 (1397.5) Jesus’ position was made more difficult because his mother and uncle, and even his younger brother James, all urged him to join the nationalist cause. All the better Jews of Nazareth had enlisted, and those young men who had not joined the movement would all enlist the moment Jesus changed his mind. He had but one wise counselor in all Nazareth, his old teacher, the chazan, who counseled him about his reply to the citizens’ committee of Nazareth when they came to ask for his answer to the public appeal which

널리 알려진 방책에 의식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사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상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기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 이상{以上}의 어떤 존재임을 공표할 수 없었으며; 더 성숙된 성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명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알릴 수 없었다. 이런 제한들에도, 그의 종교적 신의와 국가적 충성심은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고, 젊은 친구들은 패가 갈렸으며, 성읍의 모든 **유대인** 대표자에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에 대해 비난 받았음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었고, 이런 종류의 소동은 더욱 그랬다.

무슨 조치든지 취해야 했다. 그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 했고,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감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첫째 의무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 즉 과부인 어머니와 여덟 명의 동생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곧 물질적인 생활필수품-- 이상{以上}인 아버지의 보살핌과 인도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비참한 사고로 인해 자신이 떠맡게 된 그런 책무를 양심상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처음부터 변명했던 그 이유를 고수했다. 그는 자기를 기꺼이 해방시켜 주려는 어머니와 큰 동생의 마음에 감사를 표명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반복하면서,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예수**는 자신의 “생애 사명”에 대해 여러 번 암시했지만, 그것이 군사적{軍事的} 개념과 모순되든지 모순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끝마칠 때까지는, 자기 생애에서 다른 모든 것이 뒤로 미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사렛**의 모든 주민은, 그가 가족에게 훌륭한 아버지임을 잘 알았고, 이것은 모든 고상한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예수**의 대답은 대부분의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 일부 사람도, 계획표에 없었던 **야고보**의 연설이 이때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됐다. 바로 그날 카잔이 **야고보**에게 연설하도록 연습시켰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야고보는, (**야고보**) 자신이 가족을 위해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됐다면, **예수**가 민족의 해방을 틀림없이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가 남아있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써,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을 해서, 결국 여러분은 **요셉**의 가족 가운데 단 하나의 지도자뿐 아니라 곧 다섯 명의 충성스런 민족주의자를 갖게 될 것인데, 우리 형님이자_아버지의 지도를 받은 우리 다섯 형제 가운데,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had been made. In all Jesus' young life this was the very first time he had consciously resorted to public strategy. Theretofore, always had he depended upon a frank statement of truth to clarify the situation, but now he could not declare the full truth. He could not intimate that he was more than a man; he could not disclose his idea of the mission which awaited his attainment of a riper manhood. Despite these limitations his religious fealty and national loyalty were directly challenged. His family was in a turmoil, his youthful friends in division, and the entire Jewish contingent of the town in a hubbub. And to think that he was to blame for it all! And how innocent he had been of all intention to make trouble of any kind, much less a disturbance of this sort.

127:2.8 (1397.6) Something had to be done. He must state his position, and this he did bravely and diplomatically to the satisfaction of many, but not all. He adhered to the terms of his original plea, maintaining that his first duty was to his family, that a widowed mother and eight brothers and sisters needed something more than mere money could buy — the physical necessities of life — that they were entitled to a father's watchcare and guidance, and that he could not in clear conscience release himself from the obligation which a cruel accident had thrust upon him. He paid compliment to his mother and eldest brother for being willing to release him but reiterated that loyalty to a dead father forbade his leaving the family no matter how much money was forthcoming for their material support, making his never-to-be-forgotten statement that “money cannot love.” In the course of this address Jesus made several veiled references to his “life mission” but explained tha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might be inconsistent with the military idea, it, along with everything else in his life, had been given up in order that he might be able to discharge faithfully his obligation to his family. Everyone in Nazareth well knew he was a good father to his family, and this was a matter so near the heart of every noble Jew that Jesus' plea found an appreciative response in the hearts of many of his hearers; and some of those who were not thus minded were disarmed by a speech made by James, which, while not on the program, was delivered at this time. That very day the chazan had rehearsed James in his speech, but that was their secret.

127:2.9 (1398.1) James stated that he was sure Jesus would help to liberate his people if he (James) were only old enough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and that, if they would only consent to allow Jesus to remain “with us, to be our father and teacher, then you will have not just one leader from Joseph's family, but presently you will have five loyal nationalists, for are there not five of us boys to grow up and come forth from our brother-father's guidance to serve our nation?” And thus

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우 긴장되고 험악한 상황이 꽤 만족스럽게 끝나도록 했다.

그 위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지만, **나사렛**에서는 이 사건이 결코 잊히지 않았다. 선동은 계속됐으며, **예수**가 다시는 모든 사람 전체의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됐고, 갈라진 감정은 끝내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로 말미암아 확대돼서, **예수**가 훗날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때부터 **나사렛**에서는 **사람의 아들**에 관한 분열된 정서가 지속됐다.

이 해에 **야고보**가 학교를 졸업했고,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연장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됐고, 이제 땅에와 쟁기 만드는 일을 물려받았으며, 한편 **예수**는, 집 마무리와 노련한 가구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해에 **예수**의 정신이 조직화되는 엄청난 발전이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점차 결합시키게 됐고, **아들**이 증여된 이후의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 마음 속에 거하는 **관찰자**와 똑같은, 내주하는 **관찰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이와 같은 지능의 조직화를 모두 성취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밤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났던, **임마누엘**이 보낸 사자 외에는 어떤 초자연적 사건도 이 젊은이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았다.

3. 열여덟 살 되던 해 (서기 12년)

이 해를 지나는 동안에, 집과 밭을 제외하고, 가족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처분됐다. **가버나움**에 있는, (다른 하나의 소유권을 제외하고) 이미 저당 잡힌 마지막 부동산이 팔렸다. 이 돈은, 세금, **야고보**를 위한 새 연장 구입, 그리고 대상 지역 근처에 있던 오래된 가정용품점 및 수리소의 대금 지불에 사용됐는데, **야고보**가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므로, 이때 **예수**가 그 가게를 다시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재정 압박이 당분간 줄어들자, **예수**는 **야고보**를 **유월절**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하루 먼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걸어서 갔고, **예수**는 아버지가 5년 전에 비슷한 여행에서 자기에게 가르쳤듯이, 가는 도중에 역사적 장소에 관해서 **야고보**에게 이야기해 줬다.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들은 생소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및 민족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야고보**는 매우 종교적인 유형의 소년이었고, **예수**의 필생과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견해에 완전히 동

did the lad bring to a fairly happy ending a very tense and threatening situation.

127:2.10 (1398.2) The crisis for the time being was over, but never was this incident forgotten in Nazareth. The agitation persisted; not again was Jesus in universal favor; the division of sentiment was never fully overcome. And this, augmented by other and subsequent occurrences, was one of the chief reasons why he moved to Capernaum in later years. Henceforth Nazareth maintained a division of sentiment regarding the Son of Man.

127:2.11 (1398.3) James graduated at school this year and began full-time work at home in the carpenter shop. He had become a clever worker with tools and now took over the making of yokes and plows while Jesus began to do more house finishing and expert cabinet work.

127:2.12 (1398.4) This year Jesus made great progress in the organization of his mind. Gradually he had brought his divine and human natures together, and he accomplished all this organization of intellect by the force of his own *decisions* and with only the aid of his indwelling Monitor, just such a Monitor as all normal mortals on all postbestowal-Son worlds have within their minds. So far, nothing supernatural had happened in this young man's career except the visit of a messenger, dispatched by his elder brother Immanuel, who once appeared to him during the night at Jerusalem.

3. THE EIGHTEENTH YEAR (A.D. 12)

127:3.1 (1398.5) In the course of this year all the family property, except the home and garden, was disposed of. The last piece of Capernaum property (except an equity in one other), already mortgaged, was sold. The proceeds were used for taxes, to buy some new tools for James, and to make a payment on the old family supply and repair shop near the caravan lot, which Jesus now proposed to buy back since James was old enough to work at the house shop and help Mary about the home. With the financial pressure thus eased for the time being, Jesus decided to take James to the Passover. They went up to Jerusalem a day early, to be alone, going by way of Samaria. They walked, and Jesus told James about the historic places en route as his father had taught him on a similar journey five years before.

127:3.2 (1399.1) In passing through Samaria, they saw many strange sights. On this journey they talked over many of their problems, personal, family, and national. James was a very religious type of lad, and while he did not fully agree with his mother regarding the little he knew of the plans concerning

의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가족의 부양을 떠맡게 돼서, **예수**가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했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유월절**에 데려간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고, 미래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더욱 그랬다. **예수**와 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전승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곧 보게 될 것들에 관해서 미리 많이 준비시켰는데, 그리함으로 자신이 성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광경에 그리 예민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제사장들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태도로 임무 수행에 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매우 즐겼다.

예수는 **유월절** 만찬을 위해 **야고보**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양을 가져와서, **예수**가 **유월절** 가족의 가장{家長} 자격으로 의식을 주관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마리아**가 **야고보**와 같이 앉아 이야기 나눴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는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했다. 다음 날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했고, **야고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을 허락받았다. 그날 아침, 그들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감람원** 기슭에서 쉬는 동안, **야고보**는 경탄하며 외쳤고, **예수**는 조용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야고보**는 형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에 그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고, 다음 날 집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야고보**는 선생들의 토론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자고 졸랐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대로, **예수**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토론을 들었지만, **예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자 **하나님**인 이 자각하는 정신에게, 그것은 너무 미숙하고 무의미하게 보였다--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뿐이었다. **야고보**는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그의 물음에 **예수**는 단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그들은 **여리고**와 **요단** 계곡을 지나 집으로 여행했고, 그 도중에 **예수**는, 자신이 열세 살에 이 길을 지나갔던 지난번 여행을 비롯한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나사렛에 돌아오자, **예수**는 가족의 오래된 수리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지방의 사방으로부터, 그리고 근처 지역들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게 돼서 매우 즐거워했다. **예수**는 사람들을--곧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

Jesus' lifework, he did look forward to the time when he would be abl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so that Jesus could begin his mission. He was very appreciative of Jesus' taking him up to the Passover, and they talked over the future more fully than ever before.

127:3.3 (1399.2) Jesus did much thinking as they journeyed through Samaria, particularly at Bethel and when drinking from Jacob's well. He and his brother discussed the traditions of Abraham, Isaac, and Jacob. He did much to prepare James for what he was about to witness at Jerusalem, thus seeking to lessen the shock such as he himself had experienced on his first visit to the temple. But James was not so sensitive to some of these sights. He commented on the perfunctory and heartless manner in which some of the priests performed their duties but on the whole greatly enjoyed his sojourn at Jerusalem.

127:3.4 (1399.3) Jesus took James to Bethany for the Passover supper. Simon had been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and Jesus presided over this household as the head of the Passover family, having brought the paschal lamb from the temple.

127:3.5 (1399.4) After the Passover supper Mary sat down to talk with James while Martha, Lazarus, and Jesus talked together far into the night. The next day they attended the temple services, and James was received into the commonwealth of Israel. That morning, as they paused on the brow of Olivet to view the temple, while James exclaimed in wonder, Jesus gazed on Jerusalem in silence. James could not comprehend his brother's demeanor. That night they again returned to Bethany and would have departed for home the next day, but James was insistent on their going back to visit the temple, explaining that he wanted to hear the teachers. And while this was true, secretly in his heart he wanted to hear Jesus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as he had heard his mother tell about. Accordingly, they went to the temple and heard the discussions, but Jesus asked no questions. It all seemed so puerile and insignificant to this awakening mind of man and God — he could only pity them. James was disappointed that Jesus said nothing. To his inquiries Jesus only made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127:3.6 (1399.5) The next day they journeyed home by Jericho and the Jordan valley, and Jesus recounted many things by the way, including his former trip over this road when he was thirteen years old.

127:3.7 (1399.6) Upon returning to Nazareth, Jesus began work in the old family repair shop and was greatly cheered by being able to meet so many people each day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surrounding districts. Jesus truly loved people — just common folks. Each month he made his

다. 매 달 그 가게에 대한 불입금을 지불했고, **야고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을 계속 부양했다.

외부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일 년에 여러 차례, **예수**는 회당에서 **안식일** 성서 구절을 계속 읽었고, 그가 읽은 구절에 대한 해설을 여러 번 요청받기도 했지만, 그는 대개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절을 골랐다. 그는 몇 개의 구절을 골라서 배열함으로써,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는 데 능숙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는 **안식일** 오후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보했다.

카잔이 이 무렵에 철학적 토의를 위한 젊은이의 모임을 창시했고, 그들은 각각 다른 회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자기 집에서도 가끔 모였는데, **예수**는 이 모임에서 탁월한 일원{一員}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는 최근의 민족주의적 논쟁 과문으로 잃었던, 동네에서의 자신의 위신을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사렛**의 남녀 젊은이들 가운데 다정한 친구와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많았다.

9월에, **엘리사벳**과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했다. 아버지를 잃은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 **나사렛**에 남아서 목공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계통의 일을 하라고 권하지 않으면, **유대지방** 구릉지대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매우 조들리고 있음을 몰랐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기 아들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젊은이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하게 됐다.

예수와 **요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은 매우 상세하고도 개인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방문을 마쳤을 때,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될 때까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목격했던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돼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애썼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생애 사명의 한 부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지만, **예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해를 보내게 될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작은 농장을 보살피며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만족하게 됐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는 그날 까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 해 12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이 **나사렛** 가족에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아기 동생 **아모스**가 고열로 한 주간 앓다가 죽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만아들과 함께 이 슬픈 기간을 견뎌

payments on the shop and, with James's help, continued to provide for the family.

127:3.8 (1399.7) Several times a year, when visitors were not present thus to function, Jesus continued to read the Sabbath scriptures at the synagogue and many times offered comments on the lesson, but usually he so selected the passages that comment was unnecessary. He was skillful, so arranging the order of the reading of the various passages that the one would illuminate the other. He never failed, weather permitting, to take his brothers and sisters out on Sabbath afternoons for their nature strolls.

127:3.9 (1400.1) About this time the chazan inaugurated a young men's club for philosophic discussion which met at the homes of different members and often at his own home, and Jesus became a prominent member of this group. By this means he was enabled to regain some of the local prestige which he had lost at the time of the recent nationalistic controversies.

127:3.10 (1400.2) His social life, while restricted, was not wholly neglected. He had many warm friends and staunch admirers among both the young men and the young women of Nazareth.

127:3.11 (1400.3) In September, Elizabeth and John came to visit the Nazareth family. John, having lost his father, intended to return to the Judean hills to engage in agriculture and sheep raising unless Jesus advised him to remain in Nazareth to take up carpentry or some other line of work. They did not know that the Nazareth family was practically penniless. The more Mary and Elizabeth talked about their sons, the more they became convinced that it would be good for the two young men to work together and see more of each other.

127:3.12 (1400.4) Jesus and John had many talks together; and they talked over some very intimate and personal matters. When they had finished this visit, they decided not again to see each other until they should meet in their public service after “the heavenly Father should call” them to their work. John was tremendously impressed by what he saw at Nazareth that he should return home and labor for the support of his mother. He became convinced that he was to be a part of Jesus' life mission, but he saw that Jesus was to occupy many years with the rearing of his family; so he was much more content to return to his home and settle down to the care of their little farm and to minister to the needs of his mother. And never again did John and Jesus see each other until that day by the Jordan when the Son of Man presented himself for baptism.

127:3.13 (1400.5) On Saturday afternoon, December 3, of this year, death for the second time struck at this Nazareth family. Little Amos, their baby brother, died after a week's illness with a high

넌 후부터,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를 진정한 가장으로 완전히 인식하게 됐으며; 그는 정말로 자격 있는 가장이었다.

4년 동안 그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그들은 해마다 더 가난해짐을 느꼈다. 이해 말쯤에는 그들의 모든 힘든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체험에 직면했다. **야고보**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장례비용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염려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리아**여, 슬픔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머니의 미소는 아마 우리에게 더 잘 하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라는 희망으로 이런 과제들을 헤쳐 나갈 힘을 매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굽히지 않는 실질적 낙천주의는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모든 아이가, 더 나은 세월과 일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희망에 찬 이런 용기는, 그들의 빈곤으로 말미암는 우울함에도, 강하고 고상한 성품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예수는 당면한 과제에 자신의 모든 정신, 혼, 및 육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깊이 생각하는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것이, 지치지 않는 **인내심**과 연결돼서, --마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살면서”-- 힘든 필사자 실존의 시험을 차분히 견디게 해줬다.

4. 열아홉 살 되던 해 (서기 13년)

이 무렵에,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마리아**가 그를 아들로 여기던 마음은 줄었으며; 점점 더 아이들의 아버지로 여기게 됐다. 매일의 생활은, 실질적이고 당면한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의 필생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덜하게 됐고,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네 아들과 세 딸을 부양하고 양육하기에 공통으로 몰두했다.

이 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는 아이들을 키우는 자신의 방법--곧 악을 행하기를 금지하는 **옛 유대인** 방식 대신에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관해서 어머니의 완전한 동의를 얻었다. **예수**는, 자기 가정에서나 공생애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형태로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의 금기{禁忌}에서 유래된 부정적 방식의 가르침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악을 행하기를 금지시킴으로써 악을 부각시키기를 피하는 대신, 선을 실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선을 부각시켰다. 이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가족의 행복에 관련

fever. After passing through this time of sorrow with her first-born son as her only support, Mary at last and in the fullest sense recognized Jesus as the real head of the family; and he was truly a worthy head.

127:3.14 (1400.6) For four years their standard of living had steadily declined; year by year they felt the pinch of increasing poverty. By the close of this year they faced one of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of all their uphill struggles. James had not yet begun to earn much, and the expenses of a funeral on top of everything else staggered them. But Jesus would only say to his anxious and grieving mother: “Mother-Mary, sorrow will not help us; we are all doing our best, and mother’s smile, perchance, might even inspire us to do better. Day by day we are strengthened for these tasks by our hope of better days ahead.” His sturdy and practical optimism was truly contagious; all the children lived in an atmosphere of anticipation of better times and better things. And this hopeful courage contributed mightily to the development of strong and noble characters, in spite of the depressiveness of their poverty.

127:3.15 (1400.7) Jesus possessed the ability effectively to mobilize all his powers of mind, soul, and body on the task immediately in hand. He could concentrate his deep-thinking mind on the one problem which he wished to solve, and this, in connection with his untiring *patience*, enabled him serenely to endure the trials of a difficult mortal existence — to live as if he were “seeing Him who is invisible.”

4. THE NINETEENTH YEAR (A.D. 13)

127:4.1 (1401.1) By this time Jesus and Mary were getting along much better. She regarded him less as a son; he had become to her more a father to her children. Each day’s life swarmed with practical and immediate difficulties. Less frequently they spoke of his lifework, for, as time passed, all their thought was mutually devoted to the support and upbringing of their family of four boys and three girls.

127:4.2 (1401.2) By the beginning of this year Jesus had fully won his mother to the acceptance of his methods of child training — the positive injunction to do good in the place of the older Jewish method of forbidding to do evil. In his home and throughout his public-teaching career Jesus invariably employed the *positive* form of exhortation. Always and everywhere did he say, “You shall do this — you ought to do that.” Never did he employ the negative mode of teaching derived from the ancient taboos. He refrained from placing emphasis on evil by forbidding it, while he exalted the good by commanding its performance. Prayer time in this household was the occasion for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토의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는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현명한 훈육을 시작했으므로, 즉시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데 거의 또는 전혀 벌을 줄 필요가 없었다. 유일한 예외가 **유다**였는데, 그에게는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는 여러 경우에 자주 느꼈다. 세 번의 경우에, 고의로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에 대해, 그에게 벌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대한 벌칙은 나이든 다른 형제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결정됐고, 벌을 주기 전에 **유다** 자신의 동의도 받았다.

예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매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또한 그의 모든 경영상 결정에는 참신하게 해석하는 융통성이 있었고, 이를 개인에 맞게 적용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장(家長)인 **형**을 움직이는 공정함의 기질로 아이들 모두에게 크게 감명을 줬다. 그는 결코 독단적으로 형제를 훈련시키지 않았고, 그런 일관된 공정성과 각 개인에 대한 그의 배려 때문에, 가족 모두 **예수**를 매우 좋아했다.

야고보와 **시몬**은, 자신의 호전성(好戰性)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난 친구들을, 설득과 무저항의 방식으로 진정시키려는 **예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랐으며, 그들의 경우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요셉**과 **유다**는, 그런 교훈을 집에서는 따르면서도, 동무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성급하게 자신을 방어했으며, 특히 **유다**가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무저항이 가족의 규정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교훈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아이들 모두, 특히 여자아이들은 다정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서 고민거리를 **예수**와 의논하려 했고 그를 신뢰했다.

야고보는 온건하고 침착한 젊은이로 자랐지만, **예수**처럼 영적 경향을 갖추지는 못했다. 충실한 일꾼인 반면에 훨씬 더 영적이지 못한 정신을 지녔던 **요셉**보다는, **야고보**가 훨씬 더 우수한 학생이었다. **요셉**은 민첩하지 못했고, 지적으로도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졌다. **시몬**은 선의(善意)를 가진 소년이었지만 너무 심한 망상가였다. 그는 생활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으므로 **예수**와 **마리아**에게 상당한 근심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항상 착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아이였다. **유다**는 말쑥꾼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이상(理想)을 갖고 있었지만 기질이 안정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과 적극성을 모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균형 감각과 분별력은 거의 지니지 못했다.

미리암은 고상하고 영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온건하고 분별력 있는 딸이었다. **마르다**는 생

discussing anything and everything relating to the welfare of the family.

127:4.3 (1401.3) Jesus began wise discipline upon his brothers and sisters at such an early age that little or no punishment was ever required to secure their prompt and wholehearted obedience. The only exception was Jude, upon whom on sundry occasions Jesus found it necessary to impose penalties for his infractions of the rules of the home. On three occasions when it was deemed wise to punish Jude for self-confessed and deliberate violations of the family rules of conduct, his punishment was fixed by the unanimous decree of the older children and was assented to by Jude himself before it was inflicted.

127:4.4 (1401.4) While Jesus was most methodical and systematic in everything he did, there was also in all his administrative rulings a refreshing elasticity of interpretation and an individuality of adaptation that greatly impressed all the children with the spirit of justice which actuated their father-brother. He never arbitrarily disciplined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such uniform fairness and personal consideration greatly endeared Jesus to all his family.

127:4.5 (1401.5) James and Simon grew up trying to follow Jesus' plan of placating their bellicose and sometimes irate playmates by persuasion and nonresistance, and they were fairly successful; but Joseph and Jude, while assenting to such teachings at home, made haste to defend themselves when assailed by their comrades; in particular was Jude guilty of violating the spirit of these teachings. But nonresistance was not a rule of the family. No penalty was attached to the violation of personal teachings.

127:4.6 (1401.6) In general, all of the children, particularly the girls, would consult Jesus about their childhood troubles and confide in him just as they would have in an affectionate father.

127:4.7 (1401.7) James was growing up to be a well-balanced and even-tempered youth, but he was not so spiritually inclined as Jesus. He was a much better student than Joseph, who, while a faithful worker, was even less spiritually minded. Joseph was a plodder and not up to the intellectual level of the other children. Simon was a well-meaning boy but too much of a dreamer. He was slow in getting settled down in life and was the cause of considerable anxiety to Jesus and Mary. But he was always a good and well-intentioned lad. Jude was a firebrand. He had the highest of ideals, but he was unstable in temperament. He had all and more of his mother's determination and aggressiveness, but he lacked much of her sense of proportion and discretion.

127:4.8 (1402.1) Miriam was a well-balanced and level-headed daughter with a keen appreciation of things

각과 행동이 느렸지만 매우 믿을만하고 유능한 아이였다. 아기 **룻**은 가족에게 밝은 빛 같았으며; 경솔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가장 진실한 심성을 갖고 있었다. **룻**은 아버지 격인 제일 큰오빠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룻**을 버릇없게 만들지는 않았다. **룻**은 매우 아름다운 아이였으나, 그 성읍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가족 중에서 가장 미녀인 **미리암**보다는 못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는 **안식일** 관례,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적 양상과 관련된 가족 교훈과 격식을 많이 자유화하고 변경시켰으며, **마리아**는 이런 변화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무렵에, **예수**는 집안의 확고부동한 가장이 돼있었다.

이 해에 **유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는 그 경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 하프를 팔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여가를 즐기던 마지막 도구가 사라졌다. 그는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로할 때에는 하프 연주를 매우 즐기곤 했었다. 그러나 그 하프가 적어도 세금 징수원에게 압수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었다.

5. 에스라의 딸 리브가

예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나사렛**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는 성읍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고, 젊은 여자들 대부분이 그에게 깊은 호감을 가졌다. **예수**는 건강하고 지적인 남성스러움의 훌륭한 표본이었고, 영적 지도자로서 명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나사렛** 부자 상인 **에스라**의 맏딸인 **리브가**가, 이 **요셉**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 점점 빠지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리브가**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여동생 **미리암**에게 고백했고, **미리암**은 다시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마리아**는 대단히 흥분했다. 이제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 된 아들을 잃게 되려는 것일까? 어려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결혼이 **예수**의 장래 사명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곰곰이 생각했으며; 자주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따금,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었다. **마리아**와 **미리암**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한 후, **예수**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는 특별한 운명의 아들이며; 앞으로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 또는 어쩌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을 **리브가**에게 직접 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로 결정했다.

리브가는 주의 깊게 들었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렘,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그 남자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리브가**는

noble and spiritual. Martha was slow in thought and action but a very dependable and efficient child. Baby Ruth was the sunshine of the home; though thoughtless of speech, she was most sincere of heart. She just about worshiped her big brother and father. But they did not spoil her. She was a beautiful child but not quite so comely as Miriam, who was the belle of the family, if not of the city.

127:4.9 (1402.2) As time passed, Jesus did much to liberalize and modify the family teachings and practices related to Sabbath observance and many other phases of religion, and to all these changes Mary gave hearty assent. By this time Jesus had become the unquestioned head of the house.

127:4.10 (1402.3) This year Jude started to school, and it was necessary for Jesus to sell his harp in order to defray these expenses. Thus disappeared the last of his recreational pleasures. He much loved to play the harp when tired in mind and weary in body, but he comforted himself with the thought that at least the harp was safe from seizure by the tax collector.

5. REBECCA, THE DAUGHTER OF EZRA

127:5.1 (1402.4) Although Jesus was poor, his social standing in Nazareth was in no way impaired. He was one of the foremost young men of the city and very highly regarded by most of the young women. Since Jesus was such a splendid specimen of robust and intellectual manhood, and considering his reputation as a spiritual leader, it was not strange that Rebecca, the eldest daughter of Ezra, a wealthy merchant and trader of Nazareth, should discover that she was slowly falling in love with this son of Joseph. She first confided her affection to Miriam, Jesus' sister, and Miriam in turn talked all this over with her mother. Mary was intensely aroused. Was she about to lose her son, now become the indispensable head of the family? Would troubles never cease? What next could happen? And then she paused to contemplate what effect marriage would have upon Jesus' future career; not often, but at least sometimes, did she recall the fact that Jesus was a “child of promise.” After she and Miriam had talked this matter over, they decided to make an effort to stop it before Jesus learned about it, by going direct to Rebecca, laying the whole story before her, and honestly telling her about their belief that Jesus was a son of destiny; that he was to become a great religious leader, perhaps the Messiah.

127:5.2 (1402.5) Rebecca listened intently; she was thrilled with the recital and more than ever determined to cast her lot with this man of her choice and to share his career of leadership. She argued (to herself) that such a man would all the

그런 사람일수록 더 충실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리브가**는, **마리아**가 반대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를 잃게 되는 두려움에서 오는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해석했지만, 목수의 아들을 향한 자신의 이끌림을 아버지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예수**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을 그의 가족에게 기꺼이 제공하리라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마리아**와 **미리암**에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고,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대담하게 **예수**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다. **리브가**는 아버지의 협조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는 **리브가**의 열일곱 살 생일 축하연에 **예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예수는 신중하게 공감하면서 이 일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다음에는 **리브가**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책임 중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것을--곧 자신의 혈육에 대한 충성심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책무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리브가**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예수**의 말에 매우 감동되어, 그 논의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내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를 사위로 맞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과분하오”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와 심각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때까지 사는 중에, **예수**는 소년과 소녀 또는 청년과 처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귀었다. 그의 정신은, 이 세상의 실질적 사건의 긴급한 문제와, “**아버지**의 일에 관한” 궁극적인 생애를 생각하는 일에 너무 빠졌으므로, 개인적 사랑을 인간의 결혼으로 매듭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평범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말로 그는 “모든 면에서 너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에, 그는 **리브가**가 자기를 칭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 일생 동안, 그것은 내게 힘과 위안을 주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한 형제간 사랑이나 진정한 친구관계 외에는, 어떤 여자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처지임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첫째이자 최고의 의무가 아버지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며, 그것이 완수되기 전에는 결혼을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내가 운명의 아들이라면, 내 운명이 내 앞에 확실히 펼쳐질 때까지, 일생을 두고 약속하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리브가는 비탄에 잠겼다. 위로 받기를 거절했고, 아버지가 **세포리**로 이사하기로 마침내 동의할 때까지, **나사렛**을 떠나자고 졸랐다. 그 후 수년 동안, **리브가**는 청혼하는 많은 남자에게, 한 가지 대답으로 일관했다. **리브가**는 --자기가 보기에, 이제

more need a faithful and efficient wife. She interpreted Mary's efforts to dissuade her as a natural reaction to the dread of losing the head and sole support of her family; but knowing that her father approved of her attraction for the carpenter's son, she rightly reckoned that he would gladly supply the family with sufficient income fully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Jesus' earnings. When her father agreed to such a plan, Rebecca had further conferences with Mary and Miriam, and when she failed to win their support, she made bold to go directly to Jesus. This she did with the co-operation of her father, who invited Jesus to their home for the celebration of Rebecca's seventeenth birthday.

127:5.3 (1403.1) Jesus listened attentively and sympathetically to the recital of these things, first by the father, then by Rebecca herself. He made kindly reply to the effect that no amount of money could take the place of his obligation personally to rear his father's family, to “fulfill the most sacred of all human trusts — loyalty to one's own flesh and blood.” Rebecca's father was deeply touched by Jesus' words of family devotion and retired from the conference. His only remark to Mary, his wife, was: “We can't have him for a son; he is too noble for us.”

127:5.4 (1403.2) Then began that eventful talk with Rebecca. Thus far in his life, Jesus had made little distinction in his association with boys and girls, with young men and young women. His mind had been altogether too much occupied with the pressing problems of practical earthly affairs and the intriguing contemplation of his eventual career “about his Father's business” ever to have given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consummation of personal love in human marriage. But now he was face to face with another of those problems which every average human being must confront and decide. Indeed was he “tested in all points like as you are.”

127:5.5 (1403.3) After listening attentively, he sincerely thanked Rebecca for her expressed admiration, adding, “it shall cheer and comfort me all the days of my life.” He explained that he was not free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any woman other than those of simple brotherly regard and pure friendship. He made it clear that his first and paramount duty was the rearing of his father's family, that he could not consider marriage until that was accomplished; and then he added: “If I am a son of destiny, I must not assume obligations of lifelong duration until such a time as my destiny shall be made manifest.”

127:5.6 (1403.4) Rebecca was heartbroken. She refused to be comforted and importuned her father to leave Nazareth until he finally consented to move to Sepphoris. In after years, to the many men who sought her hand in marriage, Rebecca

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남자가, 살아있는 진리의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살았다. 그리고 그의 다사한 공적 책무 시절 내내 헌신적으로 그를 따라갔고,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간 그날도 (**예수**의 눈에 띄지 않고) 거기에 있었으며, **리브**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늘 세계에게, “만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위대한 분”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 오후에도, **마리아** 곁에 있는 “다른 여자들 가운데” 서 있었다.

6. 스무 살 되던 해 (서기 14년)

리브가 **예수**에게 품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사렛**에 그리고 나중에는 **가버나움**에도 널리 퍼졌고, 그리하여, 남자들이 **예수**를 사랑함과 똑같이 많은 여자도 **예수**를 사랑하게 됐지만, 그 후에는 다른 훌륭한 여자의 개인적인 헌신을 거절해야 하는 체함을 다시 하지 않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좀 더 경건하고 찬미하는 성향이 됐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 **예수**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며, 자아 만족을 위하거나 그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한 개인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예수**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리브**의 헌신도 화제가 됐다.

미리암은, **리브**가 사건에 관해 잘 알았고, 또한 오빠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 알았으므로, (그의 운명적 미래 사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예수**를 이상화{理想化}시키게 됐고,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으로, 아버지이자 오빠로서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

비록 형편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이상하게 **예수**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 **예수**가 최근에 **리브**가 인해 겪은 경험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여행하도록 지혜롭게 권했다. **예수**가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마리아** 및 **마르다**를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의 가족 다음으로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는 **므깃도**와 **안티파트리스**와 **리다**를 경유해서 갔는데, 일부는 그가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지나간 길이었다. 그는 **유월절**에 도착할 때까지 4일 동안 여행하면서, **팔레스틴**의 국제적 전쟁터였던 **므깃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성전과 모여 있는 방문객 무리를 보느라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과 함께,

had but one answer. She lived for only one purpose — to await the hour when this, to her, the greatest man who ever lived would begin his career as a teacher of living truth. And she followed him devotedly through his eventful years of public labor, being present (unobserved by Jesus) that day when he rode triumphantly into Jerusalem; and she stood “among the other women” by the side of Mary on that fateful and tragic afternoon when the Son of Man hung upon the cross, to her, as well as to countless worlds on high, “the one altogether lovely and the greatest among ten thousand.”

6. HIS TWENTIETH YEAR (A.D. 14)

127:6.1 (1403.5) The story of Rebecca's love for Jesus was whispered about Nazareth and later on at Capernaum, so that, while in the years to follow many women loved Jesus even as men loved him, not again did he have to reject the personal proffer of another good woman's devotion. From this time on human affection for Jesus partook more of the nature of worshipful and adoring regard. Both men and women loved him devotedly and for what he was, not with any tinge of self-satisfaction or desire for affectionate possession. But for many years, whenever the story of Jesus' human personality was recited, the devotion of Rebecca was recounted.

127:6.2 (1404.1) Miriam, knowing fully about the affair of Rebecca and knowing how her brother had forsaken even the love of a beautiful maiden (not realizing the factor of his future career of destiny), came to idealize Jesus and to love him with a touching and profound affection as for a father as well as for a brother.

127:6.3 (1404.2) Although they could hardly afford it, Jesus had a strange longing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His mother, knowing of his recent experience with Rebecca, wisely urged him to make the journey. He was not markedly conscious of it, but what he most wanted was an opportunity to talk with Lazarus and to visit with Martha and Mary. Next to his own family he loved these three most of all.

127:6.4 (1404.3) In making this trip to Jerusalem, he went by way of Megiddo, Antipatris, and Lydda, in part covering the same route traversed when he was brought back to Nazareth on the return from Egypt. He spent four days going up to the Passover and thought much about the past events which had transpired in and around Megiddo, the international battlefield of Palestine.

127:6.5 (1404.4) Jesus passed on through Jerusalem, only pausing to look upon the temple and the gathering throngs of visitors. He had a strange and increasing aversion to this Herod-built temple with

헤롯이 준공한 이 성전에 대해, 그는 특이하고 가증되는 혐오감을 가졌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사로**, **마르다**, 및 **마리아**를 만나고 싶었다. **나사로**는 **예수**와 같은 나이였고, 이제는 가장이었으며; 그가 방문할 무렵에 **나사로**의 어머니 또한 무덤에 묻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보다 한 살 조금 더 많았고, **마리아**는 두 살 아래였다. **예수**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치 우상처럼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주기적으로 발생되던, 전통에 반항하는 폭동들 가운데 하나가 이 방문기간에 일어났다--**예수**가 보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못 대표하고 있는 예식{禮式} 풍습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예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사로**는, **여리고**로 가는 길 아래쪽 이웃 동네에서 친구들과 **유월절**을 축하하도록 주선했었다. 이때 **예수**는, **나사로**의 집에 남아서 같이 축제를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양이 없다”고 **나사로**가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그런 유치하고 무의미한 제례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긴 시간에 걸쳐서 설득했다. 엄숙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일어나자, **예수**는, “우리 민족 중에서 어두움에 갇혀 있고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게 내버려두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빛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어두운 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앞으로 써 자유를 누리자”고 말했다.

황혼 무렵이 된 저녁에,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아서, 독실한 **유대인**으로서의 전례가 없는, **유월절** 양 없이 지내는 첫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됐고, **예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것들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라고 부른 후에 동무들에게 나눠줬으며, 그들은 방금 받은 교훈을 엄숙히 준수하면서 먹었다. 그때부터, 그가 **베다니**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성례{聖禮} 제례식을 치르는 것이 습관화됐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 그의 관점을 알게 됐으며; 그럼에도, **예수**가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을 자기 가족에게 적용시킬 의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크게 안도했다. 집에 있는 동생들과는, 해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마리아가 결혼문제에 대하여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바로 이 해였다. **마리아**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면 결혼하겠느냐고 그에게 직접 물었다. **예수**는, 당면한 의무로 인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했으며; 그런 일들은, “나의 때”, 즉 “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이미 마음 속

its politically appointed priesthood. He wanted most of all to see Lazarus, Martha, and Mary. Lazarus was the same age as Jesus and now head of the house; by the time of this visit Lazarus's mother had also been laid to rest. Martha was a little over one year older than Jesus, while Mary was two years younger. And Jesus was the idolized ideal of all three of them.

127:6.6 (1404.5) On this visit occurred one of those periodic outbreaks of rebellion against tradition — the expression of resentment for those ceremonial practices which Jesus deemed misrepresentative of his Father in heaven. Not knowing Jesus was coming, Lazarus had arranged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friends in an adjoining village down the Jericho road. Jesus now proposed that they celebrate the feast where they were, at Lazarus's house. “But,” said Lazarus, “we have no paschal lamb.” And then Jesus entered upon a prolonged and convincing dissertation to the effect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truly concerned with such childlike and meaningless rituals. After solemn and fervent prayer they rose, and Jesus said: “Let the childlike and darkened minds of my people serve their God as Moses directed; it is better that they do, but let us who have seen the light of life no longer approach our Father by the darkness of death. Let us be free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of our Father's eternal love.”

127:6.7 (1404.6) That evening about twilight these four sat down and partook of the first Passover feast ever to be celebrated by devout Jews without the paschal lamb. The unleavened bread and the wine had been made ready for this Passover, and these emblems, which Jesus termed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of life,” he served to his companions, and they ate in solemn conformity with the teachings just imparted. It was his custom to engage in this sacramental ritual whenever he paid subsequent visits to Bethany. When he returned home, he told all this to his mother. She was shocked at first but came gradually to see his viewpoint; nevertheless, she was greatly relieved when Jesus assured her that he did not intend to introduce this new idea of the Passover in their family. At home with the children he continued, year by year, to eat the Passover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127:6.8 (1404.7) It was during this year that Mary had a long talk with Jesus about marriage. She frankly asked him if he would get married if he were free from his family responsibilities. Jesus explained to her that, since immediate duty forbade his marriage, he had given the subject little thought. He expressed himself as doubting that he would ever enter the marriage state; he said that all such things must await “my hour,” the time when “my Father's work must begin.” Having settled already in his mind that he was not to become the father of

에 걱정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해에 그는, 자신의 필사자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하나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인간 개성**으로 더욱 엮어 가는 과제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상태와 영적 이해에서 계속 성장했다.

(집을 제외하고)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모든 부동산이 없어졌음에도, 이 해에, **가버나움**에 갖고 있던 한 개의 부동산 권리금을 팔아서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남기고 간 전 재산 가운데 마지막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이 부동산 거래는, **세베대**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과 이뤄졌다.

요셉이 이 해에 회당학교를 졸업해서, 집에 있는 목공소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일하게 됐으므로, 가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였다.

예수는 빠른 속도로 한 사람의 성인, 즉 청년이 아닌 어른이 돼가고 있었다. 그는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낙심에 처했을 때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를 알았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목적이 현실적으로 무산됐을 경우에도 용기 있게 견뎠다. 불의를 당했을 때에도 공정하고 공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영적인 삶의 이상{理想}을,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의 실질적인 요구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배워 나갔다. 당장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더 높고 먼 장래의 이상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방법도 계속 배웠다. 인간적 상황의 평범한 요구에 자신의 큰 뜻을 맞춰 가는 기법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다. 영적 충동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 성취 구조의 방향을 바꾸는 기법을 거의 완벽하게 터득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서히 배워나갔다. 한편으로 이 세상 가족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안내에 더욱 의존했다. 그는 실패의 문턱에서 기술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숙달했으며; 시간세계의 어려움에서 영원한 승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 배웠다.

그리하여, 해가 지나면서, 이 **나사렛** 젊은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필사자 육신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계속 체험했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온전하고 전형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피조물의 첫 생애, 즉 육신 속에서 짧고도 격렬한 생애를 통과하는 체험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인간 체험 전체는 **우주 주권자**에게 영원히 간직됐다. 그는 이해심 많은 우리 형제이며, 연민의 정이

children in the flesh, he gave very little thought to the subject of human marriage.

127:6.9 (1405.1) This year he began anew the task of further weaving his mortal and divine natures into a simple and effective *human individuality*. And he continued to grow in moral status and spiritual understanding.

127:6.10 (1405.2) Although all their Nazareth property (except their home) was gone, this year they received a little financial help from the sale of an equity in a piece of property in Capernaum. This was the last of Joseph's entire estate. This real estate deal in Capernaum was with a boatbuilder named Zebedee.

127:6.11 (1405.3) Joseph graduated at the synagogue school this year and prepared to begin work at the small bench in the home carpenter shop. Although the estate of their father was exhausted, there were prospects that they would successfully fight off poverty since three of them were now regularly at work.

127:6.12 (1405.4) Jesus is rapidly becoming a man, not just a young man but an adult. He has learned well to bear responsibility. He knows how to carry on in the face of disappointment. He bears up bravely when his plans are thwarted and his purposes temporarily defeated. He has learned how to be fair and just even in the face of injustice. He is learning how to adjust his ideals of spiritual living to the practical demands of earthly existence. He is learning how to plan for the achievement of a higher and distant goal of idealism while he toils earnestly for the attainment of a nearer and immediate goal of necessity. He is steadily acquiring the art of adjusting his aspirations to the commonplace demands of the human occasion. He has very nearly mastered the technique of utilizing the energy of the spiritual drive to turn the mechanism of material achievement. He is slowly learning how to live the heavenly life while he continues on with the earthly existence. More and more he depends upon the ultimate guidance of his heavenly Father while he assumes the fatherly role of guiding and directing the children of his earth family. He is becoming experienced in the skillful wresting of victory from the very jaws of defeat; he is learning how to transform the difficulties of time into the triumphs of eternity.

127:6.13 (1405.5) And so, as the years pass, this young man of Nazareth continues to experience life as it is lived in mortal flesh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He lives a full, representative, and replete life on Urantia. He left this world ripe in the experience which his creatures pass through during the short and strenuous years of their first life, the life in the flesh. And all this human experience is an eternal possession of the Universe Sovereign. He is our understanding

깊은 친구이고, 체험을 많이 한 주권자이며,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그는 어린아이 때 방대한 지식을 쌓았으며; 청년기 때에는 이 정보를 간추리고 분류하고 서로 연관시켰으며; 이제 그 영역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비롯해서 **네바돈** 전체 우주에 두루,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구체에서 사는 동료 필사자들을 위해, 그가 장차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이런 정신적 소유물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세상 아기로 태어난 후에,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계속되는 소년과 청년 단계를 지나왔으며; 이제 인생살이의 풍부한 체험을 소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나약함에 대한 많은 동정심을 가진, 완전한 성인이 되는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시대와 모든 단계의 필사 피조물에게 **낙원 아버지**를 계시하는 신성한 명령에 숙달돼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곧 그 영역의 한 성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brother, sympathetic friend, experienced sovereign, and merciful father.

127:6.14 (1405.6) As a child he accumulated a vast body of knowledge; as a youth he sorted, classified, and correlated this information; and now as a man of the realm he begins to organize these mental possessions preparatory to utilization in his subsequent teaching, ministry, and service in behalf of his fellow mortals on this world and on all other spheres of habitation throughout the entire universe of Nebadon.

127:6.15 (1405.7) Born into the world a babe of the realm, he has lived his childhood life and passed through the successive stages of youth and young manhood; he now stands on the threshold of full manhood, rich in the experience of human living, replete in th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full of sympathy for the frailties of human nature. He is becoming expert in the divine art of revealing his Paradise Father to all ages and stages of mortal creatures.

127:6.16 (1406.1) And now as a full-grown man — an adult of the realm — he prepares to continue his supreme mission of revealing God to men and leading men to God.

제128편. 예수님의 성년기 초기

⇨ 127

유란시아 책

129 ⇨

IV 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제128편
예수님의 성년기 초기

섹션

소개

1. 스물한 살 되던 해 (서기 15년)
2. 스물두 살 되던 해 (서기 16년)
3. 스물세 살 되던 해 (서기 17년)
4. 다마스쿠스 사건
5. 스물네 살 되던 해 (서기 18년)
6. 스물다섯 살 되던 해 (서기 19년)
7. 스물여섯 살 되던 해 (서기 20년)

PAPER 128
JESUS' EARLY MANHO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wenty-First Year (A.D. 15)
2. The Twenty-Second Year (A.D. 16)
3. The Twenty-Third Year (A.D. 17)
4. The Damascus Episode
5. The Twenty-Fourth Year (A.D. 18)
6. The Twenty-Fifth Year (A.D. 19)
7. The Twenty-Sixth Year (A.D. 20)

소개

나사렛 예수는, 성년기 인생을 시작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 생애를 계속 살았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를 선정하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일곱 번째인 마지막 증여, 즉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를 수행할 행성으로 이 특정한 세계를 선택했지만, 그 외에는, 자연스런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계 또는 비슷한 세계들에 살고 있는 다른 필사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이, 주변 환경의 변천과 씨름하면서 그 영역의 한 아이로 성장했다.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 목적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라:

1. 필사자 육신 속에서, 한 인간 피조물의 생애를 사는 체험에 정통하는 것, 즉 **네바돈**에서 자기 주권을 완성하는 것.

2.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동일한 이 필사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

INTRODUCTION

128:0.1 (1407.1) AS JESUS of Nazareth entered upon the early years of his adult life, he had lived, and continued to live, a normal and average human life on earth. Jesus came into this world just as other children come; he had nothing to do with selecting his parents. He did choose this particular world as the planet whereon to carry out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his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otherwise he entered the world in a natural manner, growing up as a child of the realm and wrestling with the vicissitudes of his environment just as do other mortals on this and on similar worlds.

128:0.2 (1407.2) Always be mindful of the twofold purpose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128:0.3 (1407.3) 1. The mastering of the experience of living the full life of a human creature in mortal flesh, the completion of his sovereignty in Nebadon.

128:0.4 (1407.4) 2. The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mortal dweller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nd the more effective leading of these same mortal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Father.

다른 모든 피조물 혜택 및 우주 이점{利點}은, 필사자 증여의 이 주요 목적에 부수적이고 2차적이었다.

128:0.5 (1407.5) All other creature benefits and universe advantages were incidental and secondary to these major purposes of the mortal bestowal.

1. 스물한 살 되던 해 (서기 15년)

성년기에 도달하면서, **예수**는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한 자의식을 갖고, 지성{知性}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의 생애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체험을 완수하는 과업, 그리하여 자신이_창조한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 통치자신분의 권한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획득하는 과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二重的}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이 엄청난 과제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두 가지 본성을 하나로--곧 **나사렛 예수**로-- 효과적으로 통합했다.

요셉의 아들 **예수**이는, 자기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남자, 필사적 사람임을 잘 알았다. 이것은 자신의 첫 칭호로 **사람의 아들**을 선택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는 정말 살과 피를 지닌 자였고, 한 우주의 운명을 주권자 권한으로 관장하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 획득한 수많은 호칭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적 말씀**--곧 **창조주 아들**--이 “육신이 되어, **유란시아**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거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는 수고했고, 지쳤고, 쉬었으며, 잠을 잤다. 그는 배고팠고, 그런 음식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켰으며; 갈증을 느꼈고, 물을 마심으로써 해결했다. 그는 인간의 느낌과 감정 전반을 체험했으며; “너희와 똑같이, 모든 것에서 시험 받았고,” 고난 받아서 죽었다.

그는 그 영역의 다른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식을 얻었고, 체험을 습득했으며, 이것들을 지혜 속에 결합시켰다. 그는 세례 받을 때까지, 어떤 초자연적 힘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한 아들로써 자신의 인간 재능 가운데 어떤 부분에도 매개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간_이전{以前} 실재로서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웠다.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는 사람과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제한시켰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사람이었다.

이 말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참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높은 통치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유혹 당하신 한 **주권자**가 있는데,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직접 고생하고 시험당하고 견뎌므로, 혼란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실 수 있다.

나사렛 목수는, 이제 자신 앞에 놓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서 인간 생애를 살기로 택했다. 그리고 이런

1. THE TWENTY-FIRST YEAR (A.D. 15)

128:1.1 (1407.4) With the attainment of adult years Jesus began in earnest and with full self-consciousness the task of completing the experience of mastering the knowledge of the life of his lowest form of intelligent creatures, thereby finally and fully earning the right of unqualified rulership of his self-created universe. He entered upon this stupendous task fully realizing his dual nature. But he had already effectively combined these two natures into one — Jesus of Nazareth.

128:1.2 (1407.5) Joshua ben Joseph knew full well that he was a man, a mortal man, born of woman. This is shown in the selection of his first title, the *Son of Man*. He was truly a partaker of flesh and blood, and even now, as he presides in sovereign authority over the destinies of a universe, he still bears among his numerous well-earned titles that of Son of Man.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creative Word — the Creator Son — of the Universal Father was “made flesh and dwelt as a man of the realm on Urantia.” He labored, grew weary, rested, and slept. He hungered and satisfied such cravings with food; he thirsted and quenched his thirst with water. He experienced the full gamut of human feelings and emotions; he was “in all things tested, even as you are,” and he suffered and died.

128:1.3 (1407.6) He obtained knowledge, gained experience, and combined these into wisdom, just as do other mortals of the realm. Until after his baptism he availed himself of no supernatural power. He employed no agency not a part of his human endowment as a son of Joseph and Mary.

128:1.4 (1408.1) As to the attributes of his prehuman existence, he emptied himself. Prior to the beginning of his public work his knowledge of men and events was wholly self-limited. He was a true man among men.

128:1.5 (1408.2) It is forever and gloriously true: “We have a high ruler who can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We have a Sovereign who was in all points tested and tempted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And since he himself has suffered, being tested and tried, he is abundantly able to understand and minister to those who are confused and distressed.

128:1.6 (1408.3) The Nazareth carpenter now fully understood the work before him, but he chose to live his human life in the channel of its natural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서, 그는 참으로 필사 피조물에게 본보기가 됐고, 이런 기록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정신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기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인간 혈통을 이루는 다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이, 자신의 필사 인생을 살았으며, “육체 속에 있던 시절에,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 그토록 자주 기도와 간구를 드렸으며, 심지어 애통하며 눈물로 드렸고, 그가 믿었으므로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처신했으므로, 자비와 이해심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자명하게, 그리고 항상, 그의 의식{意識}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항상 있었고, 적어도 그가 세례 받는 순간까지는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한 자각은 느렸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런 진화적 계시였다. 신성에 대한 이런 계시와 자각은, 그가 열세 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가 인간으로 존재한 후 처음으로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에서 시작됐으며;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준 이 체험은, 그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초자연적 체험이 있을 때 완전해졌는데, 그것은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장면이었고, 사역과 가르침으로 이뤄진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첫 번째로 열세 살 되던 해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세례 받던 날에 있었던, 이 두 천상{天上}의 방문 사이에서는, 육신화한 이 **창조주 아들**의 삶 속에 어떤 초자연적 또는 초인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아기 때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나사렛**의 한 남자가 됐을 때, 그가 실제로는 우주의 육신화한 **창조주**였음에도; 그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부터 **요한**에게 세례 받던 그 날까지, 수호 스라빔의 안내를 제외하고, 이 능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천상의 인격체들의 안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육체 속에 있던 모든 나날 동안, 그는 정말로 신성했다. 그는 실제로 **낙원 아버지**의 한 **창조주 아들**이었다. 일단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즉 주권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순전한 필사자 체험이 절차상 완성된 후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라”고 서슴없이 선언했다. 그는 훗날에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들, 즉 **영광의**

flowing. And in some of these matters he is indeed an example to his mortal creatures, even as it is recorded: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of the nature of God, thought it not strange to be equal with God. But he made himself to be of little import and, taking upon himself the form of a creature, was born in the likeness of mankind. And being thus fashioned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128:1.7 (1408.4) He lived his mortal life just as all others of the human family may live theirs, “who in the days of the flesh so frequently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even with strong feelings and tears, to Him who is able to save from all evil, and his prayers were effective because he believed.” Wherefore it behooved him *in every respect* to be made like his brethren that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understanding sovereign ruler over them.

128:1.8 (1408.5) Of his human nature he was never in doubt; it was self-evident and always present in his consciousness. But of his divine nature there was always room for doubt and conjecture, at least this was true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baptism. The self-realization of divinity was a slow and, from the human standpoint, a natural evolutionary revelation. This revelation and self-realization of divinity began in Jerusalem when he was not quite thirteen years old with the first supernatural occurrence of his human existence; and this experience of effecting the self-realization of his divine nat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of his second supernatural experience while in the flesh, the episode attendant upon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which event marked the beginning of his public career of ministry and teaching.

128:1.9 (1408.6) Between these two celestial visitations, one in his thirteenth year and the other at his baptism, there occurred nothing supernatural or superhuman in the life of this incarnated Creator Son. Notwithstanding this, the babe of Bethlehem, the lad, youth, and man of Nazareth, was in reality the incarnated Creator of a universe; but he never once used aught of this power, nor did he utilize the guidance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ide from that of his guardian seraphim, in the living of his human life up to the day of his baptism by John. And we who thus testify know whereof we speak.

128:1.10 (1408.7) And yet, throughout all these years of his life in the flesh he was truly divine. He was actually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Father. When once he had espoused his public career, subsequent to the technical completion of his purely mortal experience of sovereignty acquirement, he did not hesitate publicly to admit that he was the Son of God. He did not hesitate to declare,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주님,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만유의 주, 우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한 우주의 전능자, 이 창조계의 우주 정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감추고 계신 분,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만유 이전에 계셨고 만유 속에 계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주의 유지자, 모든 땅의 심판자,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 참 목자, 세계들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는 선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가 순전히 인간적인 삶으로부터, 인류 속에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세계를 위해서, 신성한 사역을 자아 의식하는 후반기로 들어간 뒤에 자신에게 이 칭호들이 적용되자, 그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사양했는데: 한 번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자, 그는 단지, “그는 내가 아니라, 내 형님이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항상, 심지어 이 땅에서 삶의 폭이 더 넓어진 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온순하게 순종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진지한 신자들과 감사하는 추종자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버려두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 그가 가난과 씨름하고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손이 닳도록 일할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서 자라났으며; 자신이 지금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땅과 하늘을 만든 장본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관찰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 전체의 천상의 존재로 구성된 무리들도, 이 나사렛 사람이, 천애하는 주권자이며 창조주, 아버지가심을 알았다. 심한 긴장감이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네바돈 우주에 퍼졌고; 모든 천상의 존재의 시선은 유란시아의 팔레스틴에 계속 집중돼 있었다.

이 해에, 예수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는 봉헌식을 위해 아고보를 성전에 데려갔으므로, 요셉을 데려가는 것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대할 때, 예수는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결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다니던 요단 계곡 길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으나,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수스로 통하는 요단강 동쪽 길로 갔다. 요단강을 내려가면서, 예수는 요셉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들려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승에 의하면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다는, 르우벤, 갓, 그리고 길르앗 등으로 불리는 족속들의 체험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요셉은 예수에게 그의 생애 사명에 관해서 유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 He made no protest in later years when he was called Lord of Glory, Ruler of a Universe, the Lord God of all creation, the Holy One of Israel, the Lord of all, our Lord and our God, God with us, having a name above every name and on all worlds, the Omnipotence of a universe, the Universe Mind of this creation, the One in whom are hid all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things, the eternal Word of the eternal God, the One who was before all things and in whom all things consist,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Upholder of a universe, the Judge of all the earth, the Giver of life eternal, the True Shepherd, the Deliverer of the worlds, and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128:1.11 (1409.1) He never objected to any of these titles as they were applied to him subsequent to the emergence from his purely human life into the later years of his self-consciousness of the ministry of divinity in humanity, and for humanity, and to humanity on this world and for all other worlds. Jesus objected to but one title as applied to him: When he was once called Immanuel, he merely replied, “Not I, that is my elder brother.”

128:1.12 (1409.2) Always, even after his emergence into the larger life on earth, Jesus was submissively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28:1.13 (1409.3) After his baptism he thought nothing of permitting his sincere believers and grateful followers to worship him. Even while he wrestled with poverty and toiled with his hands to provide the necessities of life for his family, his awareness that he was a Son of God was growing; he knew that he was the maker of the heavens and this very earth whereon he was now living out his human existence. And the hosts of celestial beings throughout the great and onlooking universe likewise knew that this man of Nazareth was their beloved Sovereign and Creator-father. A profound suspense pervaded the universe of Nebadon throughout these years; all celestial eyes were continuously focused on Urantia — on Palestine.

128:1.14 (1409.4) This year Jesus went up to Jerusalem with Joseph to celebrate the Passover. Having taken James to the temple for consecration, he deemed it his duty to take Joseph. Jesus never exhibited any degree of partiality in dealing with his family. He went with Joseph to Jerusalem by the usual Jordan valley route, but he returned to Nazareth by the east Jordan way, which led through Amathus. Going down the Jordan, Jesus narrated Jewish history to Joseph and on the return trip told him about the experiences of the reputed tribes of Ruben, Gad, and Gilead that traditionally had dwelt in these regions east of the river.

128:1.15 (1409.5) Joseph asked Jesus many leading

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이 질문 대부분에 대해, **예수**는 단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쨌든, 이 친밀한 대화에서 많은 말이 흘러 나왔는데, **요셉**은 많은 사건이 벌어진 여러 해 동안 그것들을 기억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이 축제 기념식에 참석할 때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요셉** 및 **베다니**의 세 친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보냈다.

2. 스물두 살 되던 해 (서기 16년)

이 해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청소년기의 문제 및 적응에 따르는 특별한 시험과 고난에 부딪치는 여러 해 가운데 한 해였다. 이제 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에 이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고, **예수**는 그들이 지적 및 감성적 생활을 새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느라 계속 분주히 지냈다. 청소년기의 문제가 그의 어린 동생들의 삶에서 드러남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그런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다.

이 해에 **시몬**이 학교를 졸업했고, **예수**의 오랜 놀이동무이자 언제나 그를 보호할 준비가 돼있는 석공 **야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형제들이 모두 목수가 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결정을 했다. 그들은 직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건물 전체에 여러 개의 청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그들 중에서 세 명이 목수 일에 전념한 후로, 모두가 바쁠 만큼 일거리가 많지 않았다.

이 해에 **예수**는 주택의 나무리 작업과 가구 제작을 계속했으나, 대상들을 위한 수리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야고보**가 작업장을 지키는 일을 교대하기 시작했다. 이 해 후반기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이 줄어들자, **예수**는 **야고보**에게 수리점을 맡겼으며, **요셉**에게는 집의 작업대를 맡기고, 자신은 **세포리**로 가서 대장간 일을 했다. 그는 여섯 달 동안 쇠덩이와 씨름했고, 모루 사용에 상당한 기술을 습득했다.

예수는, **세포리**에서 새 직업을 갖기 전에,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때 열여덟 살 갓넘은 **야고보**를 가족의 실무 가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그는 동생들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 식구들 각자가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게 했다. 그날부터 **야고보**가 가족의 재정 책임을 전담하게 됐고, **예수**는 자기 주급(週給)을 동생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권한을 **야고보**에게서 돌려받지 않았다. 그는 **세포리**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하면 매일 밤 집으로 걸어올 수도 있었지만, 날씨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참된 동기는, **야고보**와 **요셉**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

questions concerning his life mission, but to most of these inquiries Jesus would only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However, in these intimate discussions many words were dropped which Joseph remembered during the stirring events of subsequent years. Jesus, with Joseph, spent this Passover with his three friends at Bethany, as was his custom when in Jerusalem attending these festival commemorations.

2. THE TWENTY-SECOND YEAR (A.D. 16)

128:2.1 (1409.6) This was one of several years during which Jesus' brothers and sisters were facing the trials and tribulations peculiar to the problems and readjustments of adolescence. Jesus now had brothers and sisters ranging in ages from seven to eighteen, and he was kept busy helping them to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awakenings of their intellectual and emotional lives. He had thus to grapple with the problems of adolescence as they became manifest in the lives of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128:2.2 (1410.1) This year Simon graduated from school and began work with Jesus' old boyhood playmate and ever-ready defender, Jacob the stone mason. As a result of several family conferences it was decided that it was unwise for all the boys to take up carpentry. It was thought that by diversifying their trades they would be prepared to take contracts for putting up entire buildings. Again, they had not all kept busy since three of them had been working as full-time carpenters.

128:2.3 (1410.2) Jesus continued this year at house finishing and cabinetwork but spent most of his time at the caravan repair shop. James was beginning to alternate with him in attendance at the shop. The latter part of this year, when carpenter work was slack about Nazareth, Jesus left James in charge of the repair shop and Joseph at the home bench while he went over to Sepphoris to work with a smith. He worked six months with metals and acquired considerable skill at the anvil.

128:2.4 (1410.3) Before taking up his new employment at Sepphoris, Jesus held one of his periodic family conferences and solemnly installed James, then just past eighteen years old, as acting head of the family. He promised his brother hearty support and full co-operation and exacted formal promises of obedience to James from each member of the family. From this day James assumed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Jesus making his weekly payments to his brother. Never again did Jesus take the reins out of James's hands. While working at Sepphoris he could have walked home every night if necessary, but he purposely remained away, assigning weather and other reasons, but his true motive was to train James

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매주 **안식일**마다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때때로 새로운 계획의 진행을 지켜보거나, 충고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중에도 집에 들렀다.

예수는 6개월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세포리**에서 보내는 동안, 인생에 대해서 이방인의 관점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방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 했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정신을 연구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인 이 도시의 도덕적 수준이, 심지어 대상들의 도시인 **나사렛**보다도 훨씬 낮았기 때문에, **예수**는 6개월 동안 **세포리**에 머문 후, **나사렛**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함께 일했던 집단은 **세포리**와 **디베라**의 새 도시 두 곳에서 벌어진 공공사업에 참가하게 됐고,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독 아래 고용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낀, 몇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가 수리점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는 가족의 용무에 대해 개인적인 지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작업장에서 **야고보**와 함께 일했고, 집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그가 계속 감독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야고보**가 가족의 경비를 관리하는 일과 집안 예산{豫算}을 경영하는 역할에 간섭하지 않았다.

예수가 가족의 용무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길을 택한 것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계획 때문이었다. **야고보**가 가족의 실제적인 가장으로서 2년간 체험을 쌓은 뒤에--그리고 그가(곧 **야고보**가) 결혼하기 꼭 2년 전에, **요셉**이 그 뒤를 이어 가족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게 됐고 가정의 제반 경영을 맡게 됐다.

3. 스물세 살 되던 해 (서기 17년)

이 해에는 네 명이 일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완화됐다. **미리암**은 우유와 버터를 팔아서 제법 돈을 벌었고, **마르다**는 능숙한 직조{織造} 기술자가 됐다. 수리점의 구입 비용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불됐다. **예수**는 3주 동안 일을 쉬면서 **시몬**을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만큼 형편이 좋아졌으며,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로 그가 일상적인 힘든 일에서 떠나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었다.

그들은 **데가볼리**를 경유해, **펠라**, **거라사**, **필라델피아**, **헤쉬본**, 및 **여리고** 등을 지나 **예루살**

and Joseph in the bearing of the family responsibility. He had begun the slow process of weaning his family. Each Sabbath Jesus returned to Nazareth, and sometimes during the week when occasion required, to observe the working of the new plan, to give advice and offer helpful suggestions.

128:2.5 (1410.4) Living much of the time in Sepphoris for six months afforded Jesus a new opportunity to become better acquainted with the gentile viewpoint of life. He worked with gentiles, lived with gentiles, and in every possible manner did he make a close and painstaking study of their habits of living and of the gentile mind.

128:2.6 (1410.5) The moral standards of this home city of Herod Antipas were so far below those of even the caravan city of Nazareth that after six months' sojourn at Sepphoris Jesus was not averse to finding an excuse for returning to Nazareth. The group he worked for were to become engaged on public work in both Sepphoris and the new city of Tiberias, and Jesus was disinclin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any sort of employ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Herod Antipas. And there were still other reasons which made it wise, in the opinion of Jesus, for him to go back to Nazareth. When he returned to the repair shop, he did not again assume the personal direction of family affairs. He worked in association with James at the shop and as far as possible permitted him to continue oversight of the home. James's management of family expenditures and his administration of the home budget were undisturbed.

128:2.7 (1410.6) It was by just such wise and thoughtful planning that Jesus prepared the way for his eventual withdrawal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his family. When James had had two years' experience as acting head of the family — and two full years before he (James) was to be married — Joseph was placed in charge of the household funds and intrusted with the general management of the home.

3. THE TWENTY-THIRD YEAR (A.D. 17)

128:3.1 (1411.1) This year the financial pressure was slightly relaxed as four were at work. Miriam earned considerable by the sale of milk and butter; Martha had become an expert weaver. The purchase price of the repair shop was over one third paid. The situation was such that Jesus stopped work for three weeks to take Simon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longest period away from daily toil he had enjoyed since the death of his father.

128:3.2 (1411.2) They journeyed to Jerusalem by way of the Decapolis and through Pella, Gerasa,

렘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해안선 길로 왔는데, **리다**, **옴바**, **가이사라** 등을 지난 후에, **갈멜산**을 돌아 **프톨레마이오스**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예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관할의 **팔레스틴** 북부 전체 지역을 잘 알게 됐다.

예수와 **시몬**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상인을 알게 됐는데, 그는 이 **나사렛** 청년들을 매우 좋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숙소와 함께 머물자고 간청했다. **시몬**이 성전에 관심을 갖는 동안, **예수**는 잘 교육받고 세상 업무로 많이 여행한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상인은 4천 마리 이상의 여행용 낙타를 소유했으며; **로마**권 전체와 거래했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예수**에게, **다마스쿠스**에 와서 자신이 **동양**에서 하는 수입업에 동참하라고 제의했지만,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지금 당장 멀리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먼 곳에 있는 이 도시들과 더 멀리 **극서**(極西) 및 **극동**(極東)에 있는 나라들, 즉 대상(隊商)과 안내인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던 나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시몬은 **예루살렘** 방문을 매우 즐겼다. 그는 율법의 새 아들에 대한 **유월절** 봉헌의식을 통해서 정식 **이스라엘** 시민이 됐다. **시몬**이 **유월절** 예식에 참가하는 동안, **예수**는 방문객들의 군중 속에 섞였고, 여러 이방인 개종자와 흥미로운 많은 개인 상담에 열중했다.

아마 이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스데반**이라는 한 젊은 **헬라파 유대인**과 만난 것이었다.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고, **유월절** 주간 목요일 오후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아스모니아**의 궁전을 구경하면서 함께 걷는 동안, **예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으며, 그리하여 삶의 방식,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시간이나 토론하게 됐다. **스데반**은 **예수**가 하는 말에 엄청나게 감명 받았으며; 그의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의 교훈을 믿게 된 바로 그 **스데반**이었는데, 그는 이 초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성난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새로운 복음에 대한 자기 견해를 주장할 때 **스데반**이 몹시 대답했던 것은, 이전에 **예수**와 가졌던 대담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세상의 **구원주**라고 자신이 나중에 주장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에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어느 **갈릴리인**이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으며, 그는 곧 그를 위해 죽게 됐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새롭게 진보시키는 첫 순교자가 됐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성전과 그 전통적 관습을 공격한 대가(代價)로 자기 생명을 바쳤을 때,

Philadelphia, Heshbon, and Jericho. They returned to Nazareth by the coast route, touching Lydda, Joppa, Caesarea, thence around Mount Carmel to Ptolemais and Nazareth. This trip fairly well acquainted Jesus with the whole of Palestine north of the Jerusalem district.

128:3.3 (1411.3) At Philadelphia Jesus and Simon became acquainted with a merchant from Damascus who developed such a great liking for the Nazareth couple that he insisted they stop with him at his Jerusalem headquarters. While Simon gave attendance at the temple, Jesus spent much of his time talking with this well-educated and much-traveled man of world affairs. This merchant owned over four thousand caravan camels; he had interests all over the Roman world and was now on his way to Rome. He proposed that Jesus come to Damascus to enter his Oriental import business, but Jesus explained that he did not feel justified in going so far away from his family just then. But on the way back home he thought much about these distant cities and the even more remote countries of the Far West and the Far East, countries he had so frequently heard spoken of by the caravan passengers and conductors.

128:3.4 (1411.4) Simon greatly enjoyed his visit to Jerusalem. He was duly received into the commonwealth of Israel at the Passover consecration of the new sons of the commandment. While Simon attended the Passover ceremonies, Jesus mingled with the throngs of visitors and engaged in many interesting personal conferences with numerous gentile proselytes.

128:3.5 (1411.5) Perhaps the most notable of all these contacts was the one with a young Hellenist named Stephen. This young man was on his first visit to Jerusalem and chanced to meet Jesus on Thursday afternoon of Passover week. While they both strolled about viewing the Asmonean palace, Jesus began the casual conversation that resulted in their becoming interested in each other, and which led to a four-hour discussion of the way of life and the true God and his worship. Stephen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what Jesus said; he never forgot his words.

128:3.6 (1411.6) And this was the same Stephen who subsequently became a believer in the teachings of Jesus, and whose boldness in preaching this early gospel resulted in his being stoned to death by irate Jews. Some of Stephen's extraordinary boldness in proclaiming his view of the new gospel was the direct result of this earlier interview with Jesus. But Stephen never even faintly surmised that the Galilean he had talked with some fifteen years previously was the very same person whom he later proclaimed the world's Savior, and for whom he was so soon to die, thus becoming the first martyr of the newly evolving Christian faith.

거기에는 **다소**의 시민이며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있음을 **사울**이 목격했을 때, 그의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도록 원인을 제공하기에 앞장섰으며; 나중에는 그가 적극적이면서 굴하지 않는 **바울**이 됐고, 그는 철학자였으며, 비록 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됐다.

유월절 주간이 끝난 일요일에, **시몬**과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다. **시몬**은 **예수**가 이 여행에서 자신에게 가르친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예수**를 사랑해 왔지만, 이제는 가장인 **형**을 알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시골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목요일 정오에 집에 도착했고, **시몬**은 늦은 밤까지 가족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늘어냈다.

마리아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낯선 사람들, 특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보냈다는 **시몬**의 이야기로 몹시 심란했다. **예수**의 가족은 사람에 대한 그의 관심, 즉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내려는 강한 호기심을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나사렛 가족은 눈앞에 닥친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몰두했으며; **예수**의 장래 사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예수** 자신도 자기 장래 생애에 대해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약속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신성한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포기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일을 상기할 때에는 신앙이 때때로 되살아나기도 했다.

4. 다마스쿠스 사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수**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던 상인의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이 해의 마지막 4개월을 **다마스쿠스**에서 보냈다. 이 상인의 대리인이 **나사렛**을 지나면서 **예수**를 찾아냈고, 그를 **다마스쿠스**로 인도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 상인은, **다마스쿠스**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압도할 교육 중심지를 세우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새로운 이 계획사업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전 세계 교육 중심지를 돌아보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예수**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의 과정에서 마주친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였다.

When Stephen yielded up his life as the price of his attack upon the Jewish temple and its traditional practices, there stood by one named Saul, a citizen of Tarsus. And when Saul saw how this Greek could die for his faith, there were aroused in his heart those emotions which eventually led him to espouse the cause for which Stephen died; later on he became the aggressive and indomitable Paul, the philosopher, if not the sole founder, of the Christian religion.

128:3.7 (1412.1) On the Sunday after Passover week Simon and Jesus started on their way back to Nazareth. Simon never forgot what Jesus taught him on this trip. He had always loved Jesus, but now he felt that he had begun to know his father-brother. They had many heart-to-heart talks as they journeyed through the country and prepared their meals by the wayside. They arrived home Thursday noon, and Simon kept the family up late that night relating his experiences.

128:3.8 (1412.2) Mary was much upset by Simon's report that Jesus spent most of the time when in Jerusalem "visiting with the strangers, especially those from the far countries." Jesus' family never could comprehend his great interest in people, his urge to visit with them, to learn about their way of living, and to find out what they were thinking about.

128:3.9 (1412.3) More and more the Nazareth family became engrossed with their immediate and human problems; not often was mention made of the future mission of Jesus, and very seldom did he himself speak of his future career. His mother rarely thought about his being a child of promise. She was slowly giving up the idea that Jesus was to fulfill any divine mission on earth, yet at times her faith was revived when she paused to recall the Gabriel visitation before the child was born.

4. THE DAMASCUS EPISODE

128:4.1 (1412.4) The last four months of this year Jesus spent in Damascus as the guest of the merchant whom he first met at Philadelphia when on his way to Jerusalem. A representative of this merchant had sought out Jesus when passing through Nazareth and escorted him to Damascus. This part-Jewish merchant proposed to devote an extraordinary sum of money to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of religious philosophy at Damascus. He planned to create a center of learning which would out-rival Alexandria. And he proposed that Jesus should immediately begin a long tour of the world's educational centers preparatory to becoming the head of this new project. This was one of the greatest temptations that Jesus ever faced in the course of his purely human career.

이 상인은, 곧 새로 입안된 학교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열두 명의 상인과 은행가로 구성된 무리를 **예수** 앞에 불러 모았다. **예수**는 제시된 학교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는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으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전의 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야심찬 사업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 그를 후원하려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조건으로 통역하는 일을 하도록 **예수**를 자기 집에 고용했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부인과 아들들 그리고 딸들까지 동원해서, 제안된 지위를 **예수**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이 교육 기관들로부터 후원 받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적어도 '사람들의 협의회'가 통제하도록 자신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준 뒤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그였지만, **다마스쿠스**의 상인들과 은행가들로부터는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받고 환호 받았으며, 이 모든 일은 그가 눈에 띄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목수 신분이었을 때였다.

그는 이 제안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이 해 말에, 마치 **다마스쿠스** 친구들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유혹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나사렛**에 돌아와서 매일의 업무에 임했다. 또한 **다마스쿠스**의 이 사람들도, 전에 그들의 연합된 재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영광을 단호히 거절했던 **나사렛**의 옛 목수를, 훗날에 모든 **유대인**을 뒤집어 놓은 그 **가버나움** 사람과 연관시키지 못했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분리하도록 궁리했으므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 개인의 행위로 연결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학교를 **다마스쿠스**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어느 이상한 **갈릴리** 사람에 대한,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예수가 이 세상 체험 가운데 어떤 면들을 격리시키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은, 다재다능하고 눈부신 경력이 자신에게 구축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으며, 그가 삶 속에서 실천했고 가르쳤던 진리를 후세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스승을 숭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인간적 성공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세상에 전포하려는 천국 복음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자기에 관한 하나의 종교를 형성시키려는 유혹에 추종자들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일찍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교훈을 전파하는 대신 스승을 높이 세우려는, 이 천성적 인간 성향에 도움 줄만한 모든 일을 억제하려고 계속 노

128:4.2 (1412.5) Presently this merchant brought before Jesus a group of twelve merchants and bankers who agreed to support this newly projected school. Jesus manifested deep interest in the proposed school, helped them plan for its organization, but always expressed the fear that his other and unstated but prior obligations would prevent his accepting the direction of such a pretentious enterprise. His would-be benefactor was persistent, and he profitably employed Jesus at his home doing some translating while he, his wife, and their sons and daughters sought to prevail upon Jesus to accept the proffered honor. But he would not consent. He well knew that his mission on earth was not to be supported by institutions of learning; he knew that he must not obligate himself in the least to be directed by the "councils of men," no matter how well-intentioned.

128:4.3 (1412.6) He who was rejected by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even after he had demonstrated his leadership, was recognized and hailed as a master teacher by the businessmen and bankers of Damascus, and all this when he was an obscure and unknown carpenter of Nazareth.

128:4.4 (1412.7) He never spoke about this offer to his family, and the end of this year found him back in Nazareth going about his daily duties just as if he had never been tempted by the flattering propositions of his Damascus friends. Neither did these men of Damascus ever associate the later citizen of Capernaum who turned all Jewry upside down with the former carpenter of Nazareth who had dared to refuse the honor which their combined wealth might have procured.

128:4.5 (1413.1) Jesus most cleverly and intentionally contrived to detach various episodes of his life so that they never became, in the eyes of the world, associated together as the doings of a single individual. Many times in subsequent years he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is very story of the strange Galilean who declined the opportunity of founding a school in Damascus to compete with Alexandria.

128:4.6 (1413.2) One purpose which Jesus had in mind, when he sought to segregate certain features of his earthly experience, was to prevent the building up of such a versatile and spectacular career as would cause subsequent generations to venerate the teacher in place of obeying the truth which he had lived and taught. Jesus did not want to build up such a human record of achievement as would attract attention from his teaching. Very early he recognized that his followers would be tempted to formulate a religion about him which might become a competito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he intended to proclaim to the world. Accordingly, he consistently sought to suppress everything during his eventful career which he

력했다.

이와 같은 동기로, 그가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여러 시기 동안 자신이 많은 다른 명칭으로 알려지도록 내버려둠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솔직한 확신을 버리고 그를 믿도록 만드는, 어떤 부당한 영향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인간 정신을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억이용하기를 항상 거부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교훈 속에 계시된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를 믿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해 말에, **나사렛** 가정은 꽤 잘 돌아갔다. 아이들은 성숙해갔으며, **마리아**는 **예수**가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예수**는 자신의 수입이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야고보**에게 계속 보냈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급히 필요한 작은 부분만 남겼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하** **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기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그 영역의 한 개인과 아주 똑같이, 즉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처럼 왜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증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만 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었다.

5. 스물네 살 되던 해 (서기 18년)

이 해는 **예수**가 가족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첫 해였다. **야고보**는 **예수**의 조언과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가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꾸렸다.

이 해 **유월절** 다음 주간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어떤 젊은이가 **나사렛**으로 왔는데, 같은 해 후반기에, 한 무리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예수**가, **팔레스틴** 해변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담은 6월 중순에 열렸고, **예수**는 다섯 명의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들은 자기네 도시에서 그가 종교 선생이 돼달라고 간청했고, 그 일환으로 본부 회당의 카잔을 보좌하는 지위부터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을 했다.

이 위원회의 대변인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에 걸친 **유대인** 문화의 거점이 될 운명임을 **예수**에게 설명했다; **유대인**의 관심사에 대한 **헬라** 사조(思潮)가, **바빌로니아** 학파의 사상을 사실상 훨씬 앞섰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을 통틀어 반역의 불길한 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을 **예수**에게 상기시켰고, **팔레스틴**의 **유대인**이 어떤 폭동이든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고, **로마**의 철권(鐵拳)이 3개월 안에 반역을 진압시킬 것이며,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

thought might be made to serve this natural human tendency to exalt the teacher in place of proclaiming his teachings.

128:4.7 (1413.3) This same motive also explains why he permitted himself to be known by different titles during various epochs of his diversified life on earth. Again, he did not want to bring any undue influence to bear upon his family or others which would lead them to believe in him against their honest convictions. He always refused to take undue or unfair advantage of the human mind. He did not want men to believe in him unless their hearts were responsive to the spiritual realities revealed in his teachings.

128:4.8 (1413.4) By the end of this year the Nazareth home was running fairly smoothly. The children were growing up, and Mary was becoming accustomed to Jesus' being away from home. He continued to turn over his earnings to James for the support of the family, retaining only a small portion for his immediate personal expenses.

128:4.9 (1413.5) As the years passed, it became more difficult to realize that this man was a Son of God on earth. He seemed to become quite like an individual of the realm, just another man among men. And it was ordained by the Father in heaven that the bestowal should unfold in this very way.

5. THE TWENTY-FOURTH YEAR (A.D. 18)

128:5.1 (1413.6) This was Jesus' first year of comparative freedom from family responsibility. James was very successful in managing the home with Jesus' help in counsel and finances.

128:5.2 (1413.7) The week following the Passover of this year a young man from Alexandria came down to Nazareth to arrange for a meeting, later in the year, between Jesus and a group of Alexandrian Jews at some point on the Palestinian coast. This conference was set for the middle of June, and Jesus went over to Caesarea to meet with five prominent Jews of Alexandria, who besought him to establish himself in their city as a religious teacher, offering as an inducement to begin with, the position of assistant to the chazan in their chief synagogue.

128:5.3 (1414.1) The spokesmen for this committee explained to Jesus that Alexandria was destined to become the headquarters of Jewish culture for the entire world; that the Hellenistic trend of Jewish affairs had virtually outdistanced the Babylonian school of thought. They reminded Jesus of the ominous rumblings of rebellion in Jerusalem and throughout Palestine and assured him that any uprising of the Palestinian Jews would be equivalent to national suicide, that the iron hand of Rome would crush the rebellion in three months,

고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예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경청했고, 그들의 신뢰에 감사했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것은 사양했는데, 대체적인 요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에게 수여하려는 명예에 대한 그의 명백한 무관심에 당황했다. 그들은 **예수**와 헤어지기에 앞서,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존경의 표시로, 또한 **가이사라**까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시간과 비용의 대가{代價}로, 그에게 돈주머니를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양하면서, “**요셉**의 집안은 자선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강한 팔을 갖고 있고 또 내 형제들이 노동할 수 있는 한, 우리 가 남들에게 신세질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집트에서 온 친구들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몇 년 뒤에 그들은 **팔레스틴**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가버나움**의 조선공{造船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을 때, 그가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로 자랐으며,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선생으로 오라는 초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이상하게 행동하는 바로 그 **갈릴리인**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해의 나머지 6개월은, 그의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평범하게 보낸 기간이었다. 그는 극복해야 할 난관과 풀어야 할 문제의 일상적인 계획표에서 벗어난, 한때의 이 휴식을 즐겼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많이 교류했고, 자신의 인간 정신을 통달하는 것에도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직무는 오랫동안 평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12월에, **야고보**는 **예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나사렛**의 젊은 여자 **에스타**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으며, 조건이 허락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예수**는, **요셉**이 곧 열여덟 살이 되며, 그때에는 가족의 실제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도 좋은 체험이 되리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수**는 **야고보**에게 2년 후에 결혼하도록 승낙했고, **야고보**는 **예수**가 제안했던 대로 **요셉**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그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결혼이 줄을 잇게 됐다. **야고보**가 결혼에 대해 **예수**의 동의를 받아내자, **미리암**도 용기 내어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격인 **오빠**에게 털어놨다. 한때 **예수**의 호위자로 자칭했던 젊은 석공 **아곱**이, 이제는 **야고보**와 **요셉**의 사업 동료가 됐는데, 오랫동안 **미리암**을 아내로 얻고 싶어 했었다. **미리암**이 자신의 계획을 **예수**에게 말하자, **예수**는 **아곱**이 자기에게 와서 **미리암**에 대한 공식적인 청혼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동생 **마르다**가 장녀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미리암**이 느끼게 되

and that Jerusalem would be destroyed and the temple demolished, that not one stone would be left upon another.

128:5.4 (1414.2) Jesus listened to all they had to say, thanked them for their confidence, and, in declining to go to Alexandria, in substance said, “My hour has not yet come.” They were nonplused by his apparent indifference to the honor they had sought to confer upon him. Before taking leave of Jesus, they presented him with a purse in token of the esteem of his Alexandrian friends and in compensation for the time and expense of coming over to Caesarea to confer with them. But he likewise refused the money, saying: “The house of Joseph has never received alms, and we cannot eat another’s bread as long as I have strong arms and my brothers can labor.”

128:5.5 (1414.3) His friends from Egypt set sail for home, and in subsequent years, when they heard rumors of the Capernaum boatbuilder who was creating such a commotion in Palestine, few of them surmised that he was the babe of Bethlehem grown up and the same strange-acting Galilean who had so unceremoniously declined the invitation to become a great teacher in Alexandria.

128:5.6 (1414.4) Jesus returned to Nazareth. The remainder of this year was the most uneventful six months of his whole career. He enjoyed this temporary respite from the usual program of problems to solve and difficulties to surmount. He communed much with his Father in heaven and made tremendous progress in the mastery of his human mind.

128:5.7 (1414.5) But human affair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do not run smoothly for long. In December James had a private talk with Jesus, explaining that he was much in love with Esta, a young woman of Nazareth, and that they would sometime like to be married if it could be arranged.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Joseph would soon be eighteen years old, and that it would be a good experience for him to have a chance to serve as the acting head of the family. Jesus gave consent for James’s marriage two years later, provided he had, during the intervening time, properly trained Joseph to assume direction of the home.

128:5.8 (1414.6) And now things began to happen — marriage was in the air. James’s success in gaining Jesus’ assent to his marriage emboldened Miriam to approach her brother-father with her plans. Jacob, the younger stone mason, onetime self-appointed champion of Jesus, now business associate of James and Joseph, had long sought to gain Miriam’s hand in marriage. After Miriam had laid her plans before Jesus, he directed that Jacob should come to him making formal request for her and promised his blessing for the marriage just as soon as she felt that Martha was

면, 바로 결혼하도록 축복해 주기로 약속했다.

집에 있을 때, 그는 한 주에 세 번씩 야간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계속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자주 **성서**를 읽었으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동생들을 가르쳤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나사렛** 성읍에 사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한 시민으로서 처신했다.

6. 스물다섯 살 되던 해 (서기 19년)

이 해에는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출발했고, **마르다**가 **룻**을 돌봐야 하는 특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가 정규{定規} 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됐다.

예수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건강하고 세련된 표본이 될 만한 인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의 정신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꿰뚫는 지성을 지녔고--곧 동시대의 평균 정신수준에 비하면, 그의 지성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의 영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신성했다.

가정의 재정 상태는 **요셉**의 유산이 사라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대상{隊商} 수리점에 대한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했고, 그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빚이 없었으며, 근래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예비자금을 모았다. 이것이 사실이고, **예수**는 다른 남동생들을 그들의 첫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으므로, (막 회당 학교를 졸업한) **유다**의 경우에도, 첫 성전 방문을 위해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같은 길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예수**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분란이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유다**는 **나사렛**에서 사소한 분란을 여러 차례 일으켰었는데, **유다**가 조급한 성향에다 강렬한 애국심까지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유다**의 혼 깊은 곳까지 자극하고 흥분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광경의 성전을 먼저 방문하는 길로 갔는데, 그때 그들은 우연히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났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 나누면서 **유월절** 축제를 함께 지내기 위해 계획하는 동안에, **유다**는 그들 모두에게 실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 서 있던 **로마** 근위병이, 지나가는 한 **유대인** 소녀에게 음란한 말을 몇 마디 했다. **유다**는 불같이 분개하여 격앙됐으며, 그런 무례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병사에게 직접 그리고 들릴 정도로 표현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인**의 사소한 비방에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웠으므로, 근위병은 즉시 **유다**를 체포했다. 이것은 그 어린

competent to assume her duties as eldest daughter.

128:5.9 (1414.7) When at home, he continued to teach the evening school three times a week, read the Scriptures often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visited with his mother, taught the children, and in general conducted himself as a worthy and respected citizen of Nazareth in the commonwealth of Israel.

6. THE TWENTY-FIFTH YEAR (A.D. 19)

128:6.1 (1415.1) This year began with the Nazareth family all in good health and witnessed the finishing of the regular schooling of all the children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work which Martha must do for Ruth.

128:6.2 (1415.2) Jesus was one of the most robust and refined specimens of manhood to appear on earth since the days of Adam. His physical development was superb. His mind was active, keen, and penetrating — compared with the average mentality of his contemporaries, it had developed gigantic proportions — and his spirit was indeed humanly divine.

128:6.3 (1415.3) The family finances were in the best condition since the disappearance of Joseph's estate. The final payments had been made on the caravan repair shop; they owed no man and for the first time in years had some funds ahead. This being true, and since he had taken his other brothers to Jerusalem for their first Passover ceremonies, Jesus decided to accompany Jude (who had just graduated from the synagogue school) on his first visit to the temple.

128:6.4 (1415.4) They went up to Jerusalem and returned by the same route, the Jordan valley, as Jesus feared trouble if he took his young brother through Samaria. Already at Nazareth Jude had got into slight trouble several times because of his hasty disposition, coupled with his strong patriotic sentiments.

128:6.5 (1415.5) They arrived at Jerusalem in due time and were on their way for a first visit to the temple, the very sight of which had stirred and thrilled Jude to the very depths of his soul, when they chanced to meet Lazarus of Bethany. While Jesus talked with Lazarus and sought to arrange for their joint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ude started up real trouble for them all. Close at hand stood a Roman guard who made some improper remarks regarding a Jewish girl who was passing. Jude flushed with fiery indignation and was not slow in expressing his resentment of such an impropriety directly to and within hearing of the soldier. Now the Roman legionnaires were very sensitive to anything bordering on Jewish disrespect; so the

애국자에겐 감당 못할 일이었으며, **예수**가 경고의 눈빛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전에, 그는 이미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찬 말을 한바탕 떠들어 버려서 일을 악화시켰다. **유다**는 즉시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예수**가 곁에 있었다.

예수는, 바로 아니면 적어도 그날 저녁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유다**를 위해 호소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인** 역시 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개시하기를 원치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둘째 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고, **예수**도 그와 함께 감옥에 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다음 어느 **유월절**에, **열심당**을 위한 선전 업무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있게 될 때까지, **유다**는 몇 년 동안 공식적인 이 예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그가 속한 **열심당**은 애국(愛國) 단체였고, 그는 당시에 매우 열심히 활약했다.

그들이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은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해 군 법무관 앞으로 나갔다. 그는 동생의 미숙함을 사과하는 동시에, 동생이 체포되기까지의 돌발적인 상황을, 더 상세하지만 신중한 말로 재판을 잘 다뤘기 때문에, 법무관도 그 젊은 **유대인**이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그를 용서할 뜻을 비쳤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그와 같은 경솔한 짓을 하지 않도록 **유다**에게 경고한 뒤에, 퇴장을 명령하면서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 젊은이를 계속 주시함이 좋을 것이며; 그는 당신들 모두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로마** 법무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걱정거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이와 동일한 성질의 걱정거리였다--곧 그의 지각없고 무분별한 애국심의 폭발로 말미암는, 행정 당국자들과의 충돌이었다.

예수와 **유다**는 그날 잠을 자기 위해서 **베다니**로 걸어갔으며, **유월절** 만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다음 날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다. **예수**는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온 뒤 3주쯤 되어, 이 사건에 대해 **유다**와 긴 대화를 나눴다. **예수**와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유다**가 스스로 그 일을 가족에게 털어냈다. 그는 이번에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인_형의 인내심과 관용(寬容)에 대해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가 자기 가족 가운데 어떤 일원(一員)과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혈육과 가깝게 관련되는 일로부터 점점 더 분리돼 갔다.

guard promptly placed Jude under arrest. This was too much for the young patriot, and before Jesus could caution him by a warning glance, he had delivered himself of a voluble denunciation of pent-up anti-Roman feelings, all of which only made a bad matter worse. Jude, with Jesus by his side, was taken at once to the military prison.

128:6.6 (1415.6) Jesus endeavored to obtain either an immediate hearing for Jude or else his release in time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that evening, but he failed in these attempts. Since the next day was a “holy convocation” in Jerusalem, even the Romans would not presume to hear charges against a Jew. Accordingly, Jude remained in confinement until the morning of the second day after his arrest, and Jesus stayed at the prison with him. They were not present in the temple at the ceremony of receiving the sons of the law into the full citizenship of Israel. Jude did not pass through this formal ceremony for several years, until he was next in Jerusalem at a Passover and in connection with his propaganda work in behalf of the Zealots, the patriotic organization to which he belonged and in which he was very active.

128:6.7 (1415.7) The morning following their second day in prison Jesus appeared before the military magistrate in behalf of Jude. By making apologies for his brother's youth and by a further explanatory but judicious statement with reference to the provocative nature of the episode which had led up to the arrest of his brother, Jesus so handled the case that the magistrat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young Jew might have had some possible excuse for his violent outburst. After warning Jude not to allow himself again to be guilty of such rashness, he said to Jesus in dismissing them: “You had better keep your eye on the lad; he's liable to make a lot of trouble for all of you.” And the Roman judge spoke the truth. Jude did make considerable trouble for Jesus, and always was the trouble of this same nature — clashes with the civil authorities because of his thoughtless and unwise patriotic outbursts.

128:6.8 (1416.1) Jesus and Jude walked over to Bethany for the night, explaining why they had failed to keep their appointment for the Passover supper, and set out for Nazareth the following day. Jesus did not tell the family about his young brother's arrest at Jerusalem, but he had a long talk with Jude about this episode some three weeks after their return. After this talk with Jesus Jude himself told the family. He never forgot the patience and forbearance his brother-father manifested throughout the whole of this trying experience.

128:6.9 (1416.2) This was the last Passover Jesus attended with any member of his own family. Increasingly the Son of Man was to become separated from close association with his own

이 해에, 그의 깊은 명상 시간은 **룻**과 그 놀이 친구들로 인해 종종 방해받곤 했다. **예수**는 꼬마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우주를 위한 미래의 일에 대한 명상을 뒤로 미룰 준비가 항상 돼있었고, 그들은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결코 싫증 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동물과 자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매우 좋아했다.

수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환영받았다. **예수**는 수리소 옆에 모래와 나무토막이나 돌을 준비해 놔고, 아이들 무리가 놀기 위해 거기에 모였다. 그들은 놀이를 하다가 싫증나면 그 중에 제일 담대한 아이가 작업장 안을 엿보고, 작업장 일이 바쁘지 않으면, 용감하게 들어와서, “**예수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작업장 한 구석에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예수**의 손을 끌어당기려 했고, 그가 돌에 앉으면 아이들은 그의 주위로 둥글게 둘러앉았다. 그리고 꼬마 아이들이 **예수아 아저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웃는 법을, 마음껏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제일 어린 한 두 아이는 의례 **예수**의 무릎 위로 올라앉아서, 이야기 하면서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 역시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이런 지적 활동의 범위, 즉 그가 다섯 살에서 열 살까지의 아이들과 즐겁고 천진하게 놀다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아직 조카들이 태어나기 전인 이 시절에, 이 꼬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조카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 있지 못했다.

7. 스물여섯 살 되던 해 (서기 20년)

이 해가 시작되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넓은 범위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게 됐다. 그러나 적어도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인격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즈음에 그는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언덕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을 한 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든지, 내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능력이 무엇이든지, 나는 언제나 **낙원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왔고 또 항상 살아갈 것입니

flesh and blood.

128:6.10 (1416.3) This year his seasons of deep meditation were often broken into by Ruth and her playmates. And always was Jesus ready to postpone the contemplation of his future work for the world and the universe that he might share in the childish joy and youthful gladness of these youngsters, who never tired of listening to Jesus relate the experiences of his various trips to Jerusalem. They also greatly enjoyed his stories about animals and nature.

128:6.11 (1416.4) The children were always welcome at the repair shop. Jesus provided sand, blocks, and stones by the side of the shop, and beavies of youngsters flocked there to amuse themselves. When they tired of their play, the more intrepid ones would peek into the shop, and if its keeper were not busy, they would make bold to go in and say, “Uncle Joshua, come out and tell us a big story.” Then they would lead him out by tugging at his hands until he was seated on the favorite rock by the corner of the shop, with the children on the ground in a semicircle before him. And how the little folks did enjoy their Uncle Joshua. They were learning to laugh, and to laugh heartily. It was customary for one or two of the smallest of the children to climb upon his knees and sit there, looking up in wonderment at his expressive features as he told his stories. The children loved Jesus, and Jesus loved the children.

128:6.12 (1416.5) It was difficult for his friends to comprehend the range of his intellectual activities, how he could so suddenly and so completely swing from the profound discussion of politics, philosophy, or religion to the lighthearted and joyous playfulness of these tots of from five to ten years of age. As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grew up, as he gained more leisure, and before the grandchildren arrived, he paid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se little ones. But he did not live on earth long enough to enjoy the grandchildren very much.

7. THE TWENTY-SIXTH YEAR (A.D. 20)

128:7.1 (1416.6) As this year began, Jesus of Nazareth became strongly conscious that he possessed a wide range of potential power. But he was likewise fully persuaded that this power was not to be employed by his personality as the Son of Man, at least not until his hour should come.

128:7.2 (1417.1) At this time he thought much but said little about the relation of himself to his Father in heaven. And the conclusion of all this thinking was expressed once in his prayer on the hilltop, when he said: “Regardless of who I am and what power I may or may not wield, I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subject to the will of my Paradise

다”라고 기도했다. 일터를 오가며 **나사렛**을 거닐던 이 남자에 대해 기록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는 말은 --방대한 우주에 관한 한-- 글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이 해 전반에 걸쳐서 가족의 일은 무난히 진행됐지만, **유다**만 예외였다. **야고보**는 막내 남동생으로 인해 수년간 속 썩었는데, 그는 정착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정의 생활비에 대한 자기 몫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는 집안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할 자신의 몫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예수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유다**가 호전적인 행위 또는 잦은 애국심 폭발로 인해, 때때로 난처해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유다**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예수**는 단지 이렇게 충고했다: “참아라. 현명하게 충고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너희 어린 동생에게 더 나은 길을 먼저 알려 주고 난 뒤에, 너희를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어라.” 이런 **예수**의 현명하고 상냥한 조언이 가족 내의 분열을 막았으며; 그들은 함께 지냈다. 그러나 **유다**는 결혼한 후에야 침착한 기질을 갖게 됐다.

마리아는 **예수**의 장차 사명에 대해서 거의 말이 없었다. 이 주제가 거론될 때마다 **예수**는 단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예수**는 자신이 직접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을 독립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거의 완성시켰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실제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나사렛**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신속하게 준비해 나갔다.

예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에서 주요 사명이 피조물 체험을 획득하는 것, 즉 **네바돈**의 주권 성취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체험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란시아**는 물론 자신의 지방우주 전체에 **낙원 아버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계시했다. 이런 목적에 부수적으로, 그는 또한 **루시퍼**의 반역에 관련됐던 것과 같은 이 행성의 복잡하게 된 직무를 해결하는 일도 맡았다.

이 해에 **예수**는 평상시보다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고, 수리점을 경영하도록 **야고보**를 훈련시키고, **요셉**에게 집안일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려는가? 무엇을 하려는가?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거의 포기했었다. 그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말아들의 심중을 도대체 가늠할 수 없었다.

이 해 동안에, **예수**는 가족 각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동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그리고 멀리까지 산책하려고 했

Father.” And yet, as this man walked about Nazareth to and from his work, it was literally true — as concerned a vast universe — that “in him we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128:7.3 (1417.2) All this year the family affairs ran smoothly except for Jude. For years James had trouble with his youngest brother, who was not inclined to settle down to work nor was he to be depended upon for his share of the home expenses. While he would live at home, he was not conscientious about earning his share of the family upkeep.

128:7.4 (1417.3) Jesus was a man of peace, and ever and anon was he embarrassed by Jude's belligerent exploits and numerous patriotic outbursts. James and Joseph were in favor of casting him out, but Jesus would not consent. When their patience would be severely tried, Jesus would only counsel: “Be patient. Be wise in your counsel and eloquent in your lives, that your young brother may first know the better way and then be constrained to follow you in it.” The wise and loving counsel of Jesus prevented a break in the family; they remained together. But Jude never was brought to his sober senses until after his marriage.

128:7.5 (1417.4) Mary seldom spoke of Jesus' future mission. Whenever this subject was referred to, Jesus only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Jesus had about completed the difficult task of weaning his family from dependence on the immediate presence of his personality. He was rapidly preparing for the day when he could consistently leave this Nazareth home to begin the more active prelude to his real ministry for men.

128:7.6 (1417.5)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prime mission of Jesus in his seventh bestowal was the acquirement of creature experience, the achievement of the sovereignty of Nebadon. And in the gathering of this very experience he made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Paradise Father to Urantia and to his entire local universe. Incidental to these purposes he also undertook to untangle the complicated affairs of this planet as they were related to the Lucifer rebellion.

128:7.7 (1417.6) This year Jesus enjoyed more than usual leisure, and he devoted much time to training James in the management of the repair shop and Joseph in the direction of home affairs. Mary sensed that he was making ready to leave them. Leave them to go where? To do what? She had about given up the thought that Jesus was the Messiah. She could not understand him; she simply could not fathom her first-born son.

128:7.8 (1417.7) Jesus spent a great deal of time this year with the individual members of his family. He would take them for long and frequent strolls up

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는 **나사렛**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삼촌에게 **유다**를 데리고 갔지만, 추수가 끝나자 **유다**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달아났고, 나중에 호숫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있는 그를 **시몬**이 발견했다.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는 도망쳤던 소년과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그가 어부가 되기를 원했으므로, 그와 함께 **마달라**로 가서 친척 어부에게 그를 맡겼으며; **유다**는 그날부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무던히 규칙적으로 일했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어부로서 일했다.

드디어 **예수**의 모든 형제가 각자 평생직업을 정하고 거기에 정착되는 날이 왔다. **예수**가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11월에는 두 쌍의 결혼식이 있었다. **야고보**와 **에스타**, **미리암**과 **야곱**이 결혼했다.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다. **마리아**조차,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한 번 행복을 누렸다. **마리아**는 무거운 불확실성의 짐을 지고 괴로워했는데; **예수**가 소년시절처럼 앉아서 자유롭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으며; 미래에 대해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야고보와 신부 **에스타**는, 신부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성읍 서쪽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야고보**가 어머니 집을 계속 도왔지만, 결혼 때문에 그에게 할당된 액수는 반으로 줄었고, **예수**가 **요셉**을 정식으로 가장에 임명했다. **유다**는 이제 무척 충실해져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매 달 집으로 보내왔다. **야고보**와 **미리암**의 결혼식이 **유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두 쌍의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유다**는 고기잡이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 필요하면 그 이상이라도 맡겠다”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미리암은 **마리아**의 이웃집인 **야곱**의 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미 조상과 함께 묻혀 있었다. **마르다**가 **미리암** 대신 집안일을 했고, 새 조직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합동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예수**는 **야고보**와 중대한 논의를 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확실하게 말했다. 그는 수리점의 소유권을 **야고보**에게 물려줬고, **요셉** 집안 가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물려났으며,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생 **야고보**를 “내 아버지 집의 가장이며 수호자”로 세웠다. **야고보**는 수리점을 선물로 물려받은 대신, 가족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맡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책무로부터 **예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비밀 계약서를 **예수**가 작성했고, 둘이 함께 서명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예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

the hill and through the countryside. Before harvest he took Jude to the farmer uncle south of Nazareth, but Jude did not remain long after the harvest. He ran away, and Simon later found him with the fishermen at the lake. When Simon brought him back home, Jesus talked things over with the runaway lad and, since he wanted to be a fisherman, went over to Magdala with him and put him in the care of a relative, a fisherman; and Jude worked fairly well and regularly from that time on until his marriage, and he continued as a fisherman after his marriage.

128:7.9 (1418.1) At last the day had come when all Jesus' brothers had chosen, and were established in, their lifework. The stage was being set for Jesus' departure from home.

128:7.10 (1418.2) In November a double wedding occurred. James and Esta, and Miriam and Jacob were married. It was truly a joyous occasion. Even Mary was once more happy except every now and then when she realized that Jesus was preparing to go away. She suffered under the burden of a great uncertainty: If Jesus would only sit down and talk it all over freely with her as he had done when he was a boy, but he was consistently uncommunicative; he was profoundly silent about the future.

128:7.11 (1418.3) James and his bride, Esta, moved into a neat little home on the west side of town, the gift of her father. While James continued his support of his mother's home, his quota was cut in half because of his marriage, and Joseph was formally installed by Jesus as head of the family. Jude was now very faithfully sending his share of funds home each month. The weddings of James and Miriam had a very beneficial influence on Jude, and when he left for the fishing grounds, the day after the double wedding, he assured Joseph that he could depend on him “to do my full duty, and more if it is needed.” And he kept his promise.

128:7.12 (1418.4) Miriam lived next door to Mary in the home of Jacob, Jacob the elder having been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Martha took Miriam's place in the home, and the new organization was working smoothly before the year ended.

128:7.13 (1418.5) The day after this double wedding Jesus held an important conference with James. He told James, confidentially, that he was preparing to leave home. He presented full title to the repair shop to James, formally and solemnly abdicated as head of Joseph's house, and most touchingly established his brother James as “head and protector of my father's house.” He drew up, and they both signed, a secret compact in which it was stipulated that, in return for the gift of the repair shop, James would henceforth assum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thus releasing Jesus from all further obligations in these matters.

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가게의 실제 비용의 예산안이 정리됐을 때, **예수**가 **야고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애야, 내 때가 올 때까지는 매달 얼마씩 네게 보내주겠지만, 내가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내가 쓰도록 해라. 네가 보기에 적당한 가족의 필수품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써라.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병이 있을 때, 또는 뜻하지 않게 생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쓰도록 해라.”

그리하여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에 공개적으로 임하기 전에, 가정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인{成人}으로서의 삶의 두 번째 국면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After the contract was signed, after the budget was so arranged that the actual expenses of the family would be met without any contribution from Jesus, Jesus said to James: “But, my son, I will continue to send you something each month until my hour shall have come, but what I send shall be used by you as the occasion demands. Apply my funds to the family necessities or pleasures as you see fit. Use them in case of sickness or apply them to meet the unexpected emergencies which may befall any individual member of the family.”

128:7.14 (1418.6) And thus did Jesus make ready to enter upon the second and home-detached phase of his adult life before the public entrance upon his Father's business.

제 129편. 예수님의 성년기 후반부 생애

⇨ 128

유랜시아 책

130 ⇨

IV 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제 129편

예수님의 성년기 후반부 생애

섹션

소개

1. 스물일곱 살 되던 해 (서기 21년)
2. 스물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2년)
3.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서기 23년)
4. 인간 예수

PAPER 129

THE LATER ADULT LIFE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wenty-Seventh Year (A.D. 21)
2. The Twenty-Eighth Year (A.D. 22)
3. The Twenty-Ninth Year (A.D. 23)
4. The Human Jesus

소개

예수는, **나사렛** 가족의 집안일을 돌보는 것과 가족 개개인에게 직접 지시하던 것에서, 마침내 전적으로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는 세례 받기 직전까지 가족의 재정에 계속 도움을 줬고, 또한 형제자매들 각자의 영적 번영에 세심한 개인적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홀로된 어머니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항상 돼있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은 나사렛** 가정으로부터 영구히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실행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수**는 나면서부터 민족을 사랑했으며; 가족을 사랑했고, 타고난 이 애정은 그들에 대한 각별한 헌신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대돼 있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내주면 내줄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며; **예수**는 그토록 온전히 가족에게 헌신한 이래, 위대하고 강렬한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예수가 자신들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 모두 서서히 자각했다. 예상된 이별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도된 떠남을 알릴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점진적 방법뿐이었다. 그가 결국 이렇게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기까지는 4년 넘게 걸렸다.

INTRODUCTION

129:0.1 (1419.1) JESUS had fully and finally separated himself from the management of the domestic affairs of the Nazareth family and from the immediate direction of its individuals. He continued,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baptism, to contribute to the family finances and to take a keen personal interest in the spiritual welfare of every one of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always was he ready to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for the comfort and happiness of his widowed mother.

129:0.2 (1419.2) The Son of Man had now made every preparation for detaching himself permanently from the Nazareth home; and this was not easy for him to do. Jesus naturally loved his people; he loved his family, and this natural affection had been tremendously augmented by his extraordinary devotion to them. The more fully we bestow ourselves upon our fellows, the more we come to love them; and since Jesus had given himself so fully to his family, he loved them with a great and fervent affection.

129:0.3 (1419.3) All the family had slowly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Jesus was making ready to leave them. The sadness of the anticipated separation was only tempered by this graduated method of preparing them for the announcement of his intended departure. For more than four years they discerned that he was planning for this

eventual separation.

1. 스물일곱 살 되던 해 (서기 21년)

서기 21년 1월,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형식을 차리지 않고 가족을 떠나면서, 자신은 **디베라**로 갈 것이고, 그 후에 **갈릴리바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겠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그들을 떠났고, 다시는 그 가정의 정식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세포리** 대신 곧 **갈릴리**의 수도가 될 신도시(新都市)인 **디베라**에서 한 주간을 보냈으며; 관심거리가 거의 발견되지 않자, 잇달아 **막달라**와 **베데사**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친구인 **세베대**를 방문하기 위해 거기에 머물렀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였으며; **세베대** 자신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에 전문가였고; 나무 다루는 일에는 이미 장인(匠人)의 경지였으며; **세베대**도 **나사렛** 기술자의 솜씨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베대**는 개량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왔고, 이제 그 계획을 **예수**에게 제시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 방문자 목수에게 제안했으며, **예수**도 쾌히 승낙했다.

예수는 **세베대**와 1년 조금 넘도록 함께 일했지만, 그 기간에 새로운 모양의 배를 만들었고, 배 건조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정립시켰다. 우수한 기법으로, 그리고 증기를 쥔 널빤지를 이용하는 대단히 개선된 방법으로, **예수**와 **세베대**는 매우 우수한 유형의 배, 즉 옛날 유형의 배보다 훨씬 안전하게 호수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신형(新型)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세베대**는 자신의 작은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년간 했으며; 불과 5년이 못 되어, 호수 위에 떠있는 모든 배는 실제로 **가버나움**의 **세베대**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었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신형 배 설계자로 잘 알려지게 됐다.

세베대는 비교적 재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조선소는 **가버나움**의 남쪽 호숫가에 있었고, 그의 집은 **벳새다**의 어업기지 근처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이 해 동안에 **세베대**의 집에서 살았고, **가버나움**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세상에서 홀로, 즉 아버지 없이 오랫동안 일해 왔으며, 아버지같은 동업자와 함께 일하는 이 기간을 매우 즐겼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안나스**의 친척이었는데, **안나스**는 한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다가, 8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사두개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매우 존경하게 됐다. **예수**를 자기 친아들인 **야고보**, **요한**, 및 **다윗**처럼 사랑했고, 네 딸도 **예수**를 큰오빠로 여기고 존경했다. **예수**는 종종, **야고보**,

1. THE TWENTY-SEVENTH YEAR (A.D. 21)

129:1.1 (1419.4) In January of this year, A.D. 21, on a rainy Sunday morning, Jesus took unceremonious leave of his family, only explaining that he was going over to Tiberias and then on a visit to other cities about the Sea of Galilee. And thus he left them, never again to be a regular member of that household.

129:1.2 (1419.5) He spent one week at Tiberias, the new city which was soon to succeed Sepphoris as the capital of Galilee; and finding little to interest him, he passed on successively through Magdala and Bethsaida to Capernaum, where he stopped to pay a visit to his father's friend Zebedee. Zebedee's sons were fishermen; he himself was a boatbuilder. Jesus of Nazareth was an expert in both designing and building; he was a master at working with wood; and Zebedee had long known of the skill of the Nazareth craftsman. For a long time Zebedee had contemplated making improved boats; he now laid his plans before Jesus and invited the visiting carpenter to join him in the enterprise, and Jesus readily consented.

129:1.3 (1419.6) Jesus worked with Zebedee only a little more than one year, but during that time he created a new style of boat and established entirely new methods of boatmaking. By superior technique and greatly improved methods of steaming the boards, Jesus and Zebedee began to build boats of a very superior type, craft which were far more safe for sailing the lake than were the older types. For several years Zebedee had more work, turning out these new-style boats, than his small establishment could handle; in less than five years practically all the craft on the lake had been built in the shop of Zebedee at Capernaum. Jesus became well known to the Galilean fisherfolk as the designer of the new boats.

129:1.4 (1420.1) Zebedee was a moderately well-to-do man; his boatbuilding shops were on the lake to the south of Capernaum, and his home was situated down the lake shore near the fishing headquarters of Bethsaida. Jesus lived in the home of Zebedee during the year and more he remained at Capernaum. He had long worked alone in the world, that is, without a father, and greatly enjoyed this period of working with a father-partner.

129:1.5 (1420.2) Zebedee's wife, Salome, was a relative of Annas, onetime high priest at Jerusalem and still the most influential of the Sadducean group, having been deposed only eight years previously. Salome became a great admirer of Jesus. She loved him as she loved her own sons, James, John, and David, while her four daughters

요한, 및 **다윗**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고, 그들은 **예수**가 조선통으로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어부임을 알게 됐다.

이 해 동안에, **예수**는 매달 **야고보**에게 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10월에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시몬**과 **유다**의 합동결혼식 직전까지 2년 이상 **나사렛**에 돌아가지 않았다.

예수는 이 한 해 동안 내내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는 대상{隊商} 정거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직선 여행로{旅行路}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자주 내려가곤 했다. **가버나움**은 강력한 **로마** 군사 요충지였고, 그 부대의 사령관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그런 개종자를 흔히 그렇게 불렀다. 이 장교는 **로마**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스스로 **가버나움**에 아름다운 회당을 지었으며, **예수**가 **세베대**와 함께 살기 얼마 전에 그것을 **유대인**에게 기증했다. **예수**는 이 해 동안 절반 넘게 이 새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했던 대상 일행 가운데 일부는, 그를 **나사렛**에서 온 목수로 기억했다.

세금 낼 기한이 되자, **예수**는 자신을 “**가버나움**의 숙련된 기술자”로 등록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날부터 지상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가버나움** 주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어떤 법적 거주권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거주지가, **다마스쿠스**, **베다니**, **나사렛**,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내버려뒀다.

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고{書庫}에 있는 새로운 많은 책을 발견했고, 적어도 한 주에 닷새 저녁은 연구에 매진했다. 하루 저녁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보냈고, 하루 저녁은 젊은 사람들과 보냈다. **예수**의 인격에는, 젊은이를 끌어당기는 온유하고 영감 어린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의 큰 비결은 아마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갖는 한편, 그들이 묻지 않으면 그들에게 거의 충고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있었을 것이다.

세베대의 가족은 **예수**를 거의 숭배할 정도였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수**가 회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갖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회합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이웃 젊은이들 역시 저녁 식사 후의 이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예수**는 작은 숫자의 이 무리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진보된 다양한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과 매우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정치학, 사회학, 과학,

looked upon Jesus as their elder brother. Jesus often went out fishing with James, John, and David, and they learned that he was an experienced fisherman as well as an expert boatbuilder.

129:1.6 (1420.3) All this year Jesus sent money each month to James. He returned to Nazareth in October to attend Martha's wedding, and he was not again in Nazareth for over two years, when he returned shortly before the double wedding of Simon and Jude.

129:1.7 (1420.4) Throughout this year Jesus built boats and continued to observe how men lived on earth. Frequently he would go down to visit at the caravan station, Capernaum being on the direct travel route from Damascus to the south. Capernaum was a strong Roman military post, and the garrison's commanding officer was a gentile believer in Yahweh, “a devout man,” as the Jews were wont to designate such proselytes. This officer belonged to a wealthy Roman family, and he took it upon himself to build a beautiful synagogue in Capernaum, which had been presented to the Jews a short time before Jesus came to live with Zebedee. Jesus conducted the services in this new synagogue more than half the time this year, and some of the caravan people who chanced to attend remembered him as the carpenter from Nazareth.

129:1.8 (1420.5) When it came to the payment of taxes, Jesus registered himself as a “skilled craftsman of Capernaum.” From this day on to the end of his earth life he was known as a resident of Capernaum. He never claimed any other legal residence, although he did, for various reasons, permit others to assign his residence to Damascus, Bethany, Nazareth, and even Alexandria.

129:1.9 (1420.6) At the Capernaum synagogue he found many new books in the library chests, and he spent at least five evenings a week at intense study. One evening he devoted to social life with the older folks, and one evening he spent with the young people. There was something gracious and inspiring about the personality of Jesus which invariably attracted young people. He always made them feel at ease in his presence. Perhaps his great secret in getting along with them consisted in the twofold fact that he was always interested in what they were doing, while he seldom offered them advice unless they asked for it.

129:1.10 (1420.7) The Zebedee family almost worshiped Jesus, and they never failed to attend the conferences of questions and answers which he conducted each evening after supper before he departed for the synagogue to study. The youthful neighbors also came in frequently to attend these after-supper meetings. To these little gatherings Jesus gave varied and advanced instruction, just

철학 등에 관한 그의 관념과 이상{理想}을 표현했지만, 종교--곧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외에는, 결코 권위적으로 결론 내리듯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베대에게 많은 고용인이 있었으므로, **예수**는 전체 집안과 공장 및 호숫가 도우미들과 매주 한 번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가 “**주님**”으로 처음 불린 것은, 이 일꾼들 사이에서였다. 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수고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사렛** 목공소 옆에서 놀던 꼬마 아이들을 몹시 보고 싶어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가 **예수**를, 선생, 즉 철학자로 여기며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요한**은 주로 그의 종교적 가르침과 견해에 관심을 가졌다. **다윗**은 그를 기술자로는 존경했지만, 그의 종교적 견해와 철학적 교훈에 대해서는 거의 흥미가 없었다.

유다는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종종 거기에 왔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머물러 있으려 했다. **유다**는 말형을 자주 대할 수록,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

그해에 **예수**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우세하게 지배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뤘고, 내주하는 **사조 조울사**와 의식 속에서 접촉을 이루는, 새롭고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이 해는 그의 정착된 삶의 마지막 해였다. 그가 한 곳에서 또는 하나의 이행업무에 한 해 전체를 보내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그의 이 세상 순례의 날이 빠르게 다가왔다. 집중적 활동 기간이 곧 오게 됐지만, 이제는, 단순한 반면에 강렬하고 활동적이었던 그의 과거의 삶과, 더욱 긴장되고 격렬한 공중{公衆} 사역 사이에, 수년 동안의 광범한 여행과 매우 변화 많은 개인 활동을 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가 **유란시아**에서 자신을 증여하는 동안, 인간이후의 신성한 국면에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이자_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완성돼야 했다.

2. 스물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2년)

서기 22년 3월에, **예수**는 **세베대**와 작별하고 **가버나움**을 떠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드는 경비로 지불할 약간의 돈을 요청했다. 그는 **세베대**와 일하는 동안에 아주 적은 양의 돈만 꺼내서 매달 **나사렛** 가족에게 보냈다. 한 달에는 **요셉**이, 다음 달에는 **유다**가, **예수**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왔고, 그것을 **나사렛**으로 가져갔다. **유다**가 일하는 어업기지는 **가버나움** 남쪽으로 겨우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as advanced as they could comprehend. He talked quite freely with them, expressing his ideas and ideals about politics, sociology, science, and philosophy, but never presumed to speak with authoritative finality except when discussing religion — the relation of man to God.

129:1.11 (1421.1) Once a week Jesus held a meeting with the entire household, shop, and shore helpers, for Zebedee had many employees. And it was among these workers that Jesus was first called “the Master.” They all loved him. He enjoyed his labors with Zebedee in Capernaum, but he missed the children playing out by the side of the Nazareth carpenter shop.

129:1.12 (1421.2) Of the sons of Zebedee, James was the most interested in Jesus as a teacher, as a philosopher. John cared most for his religious teaching and opinions. David respected him as a mechanic but took little stock in his religious views and philosophic teachings.

129:1.13 (1421.3) Frequently Jude came over on the Sabbath to hear Jesus talk in the synagogue and would tarry to visit with him. And the more Jude saw of his eldest brother, the more he became convinced that Jesus was a truly great man.

129:1.14 (1421.4) This year Jesus made great advances in the ascendant mastery of his human mind and attained new and high levels of conscious contact with his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29:1.15 (1421.5) This was the last year of his settled life. Never again did Jesus spend a whole year in one place or at one undertaking. The days of his earth pilgrimages were rapidly approaching. Periods of intense activity were not far in the future, but there were now about to intervene between his simple but intensely active life of the past and his still more intense and strenuous public ministry, a few years of extensive travel and highly diversified personal activity. His training as a man of the realm had to be completed before he could enter upon his career of teaching and preaching as the perfected God-man of the divine and posthuman phases of his Urantia bestowal.

2. THE TWENTY-EIGHTH YEAR (A.D. 22)

129:2.1 (1421.6) In March, A.D. 22, Jesus took leave of Zebedee and of Capernaum. He asked for a small sum of money to defray his expenses to Jerusalem. While working with Zebedee he had drawn only small sums of money, which each month he would send to the family at Nazareth. One month Joseph would come down to Capernaum for the money; the next month Jude would come over to Capernaum, get the money from Jesus, and take it up to Nazareth. Jude's

예수가 **세베대** 가족을 떠날 때, **유월절** 기간 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로 동의했고, 그들 모두가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축하할 것까지도 계획했다. **예수**가 그들을 떠날 때 모두 슬퍼했는데, 특히 **세베대**의 딸들이 그랬다.

예수는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에, 새로 발견한 친구이자 친밀한 동무인 **요한 세베대**와 오래 이야기했다. 그는 **요한**에게, “내 때가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여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 대신 **나사렛** 가족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약속했다: “**선생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세상의 업무를 실행하십시오; 내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라도 당신 대신 처리할 것이고,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당신의 몫은,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겠고, 그 돈이 다 사용된 후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려운 사정에 놓이면, 당신이 돈을 더 보내지 않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보내겠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 대신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요한**은 **예수**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아버지 **세베대**와 의논했고, 액수가 무척 많은 것에 놀랐다. **예수**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은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사렛**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 되리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세베대**는 우선 일부만 받고 팔려고 내 놓은 작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의 돈으로 그 집을 매입하고, **요한**이 친구 대신 집문서를 맡아보는 신탁인(信託人)이 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의 충고대로 했다. 2년 동안의 집 임대수입은 융자금을 갚기 위해 저축됐고, 이 돈에, **예수**가 그때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데 쓰도록 **요한**에게 보내온 상당히 큰 금액이 합쳐져서, 집값을 거의 갚을 만한 액수가 됐으며; 기한이 됐을 때 **세베대**가 약간의 차액을 자기 돈으로 보충했으므로, **요한**은 방이 두개인 이 집의 융자금을 완불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의 소유주가 됐지만, 이것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나사렛 가족은 **예수**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말은 재정적 원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이제는 **예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믿었다. **야고보**는 **예수**와 맺은 계약을 기억했고,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모든 책임을 즉시 이행했다.

fishing headquarters was only a few miles south of Capernaum.

129:2.2 (1421.7) When Jesus took leave of Zebedee's family, he agreed to remain in Jerusalem until Passover time, and they all promised to be present for that event. They even arranged to celebrate the Passover supper together. They all sorrowed when Jesus left them, especially the daughters of Zebedee.

129:2.3 (1421.8) Before leaving Capernaum, Jesus had a long talk with his new-found friend and close companion, John Zebedee. He told John that he contemplated traveling extensively until “my hour shall come” and asked John to act in his stead in the matter of sending some money to the family at Nazareth each month until the funds due him should be exhausted. And John made him this promise: “My Teacher, go about your business, do your work in the world; I will act for you in this or any other matter, and I will watch over your family even as I would foster my own mother and care for my own brothers and sisters. I will disburse your funds which my father holds as you have directed and as they may be needed, and when your money has been expended, if I do not receive more from you, and if your mother is in need, then will I share my own earnings with her. Go your way in peace. I will act in your stead in all these matters.”

129:2.4 (1422.1) Therefore, after Jesus had departed for Jerusalem, John consulted with his father, Zebedee, regarding the money due Jesus, and he was surprised that it was such a large sum. As Jesus had left the matter so entirely in their hands, they agreed that it would be the better plan to invest these funds in property and use the income for assisting the family at Nazareth; and since Zebedee knew of a little house in Capernaum which carried a mortgage and was for sale, he directed John to buy this house with Jesus' money and hold the title in trust for his friend. And John did as his father advised him. For two years the rent of this house was applied on the mortgage, and this, augmented by a certain large fund which Jesus presently sent up to John to be used as needed by the family, almost equaled the amount of this obligation; and Zebedee supplied the difference, so that John paid up the remainder of the mortgage when it fell due, thereby securing clear title to this two-room house. In this way Jesus became the owner of a house in Capernaum, but he had not been told about it.

129:2.5 (1422.2) When the family at Nazareth heard that Jesus had departed from Capernaum, they, not knowing of this financial arrangement with John, believed the time had come for them to get along without any further help from Jesus. James remembered his contract with Jesus and, with the help of his brothers, forthwith assumed full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거의 두 달 동안 성전에서 열리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학파에 속한 랍비들을 가끔 방문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안식일**은 **베다니**에서 보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그를 “내 친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편지를 갖고 왔었다. **안나스**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직접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이 운영하는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예수**는 이 학파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교습(敎習)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대중 앞에서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안나스**는 비록 **예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봤지만, 그에게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지 당황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학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학생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고, 또한 **예수**가 이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식 교사의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았다.

이윽고 **유월절** 때가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그의 가족도 전부 거기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안나스**의 넓은 집에 머물렀고, 거기서 즐거운 한 가족이 되어 **유월절**을 기념했다.

유월절 주간이 끝나기 전에, 명백한 우연으로, **예수**는 어떤 부유한 여행자와 열일곱 살 가량의 청년인 그의 아들을 만났다. 이 두 여행자는 **인도**에서 왔는데, **로마**와 **지중해**의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이었고, 자기네 두 사람을 위해 통역하면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 바라면서, **유월절** 기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아버지는 자기들과 함께 여행해주도록 **예수**에게 끈질기게 부탁했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가족과, 거의 2년이나 떨어져 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양**에서 온 이 여행자는 **예수**에게, 필요시에 그의 가족의 안녕을 돌볼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친구에게 1년 분 봉급을 선불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예수**는 여행에 동참하기로 동의했다.

예수는 이 많은 돈 전부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맡겼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요한**이 이 돈을 **가버나움** 부동산의 융자금 지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었다. **예수**는 **세베대**를 완전히 신뢰하고 **지중해** 지역의 여행에 대해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의 혈육에게 까지도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고, **세베대**는 **예수**가 거의 2년의 긴 기간 동안 어디에 갔는지를 결코 누설하지 않았다. **예수**가 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사**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the family.

129:2.6 (1422.3) But let us go back to observe Jesus in Jerusalem. For almost two months he spent the greater part of his time listening to the temple discussions with occasional visits to the various schools of the rabbis. Most of the Sabbath days he spent at Bethany.

129:2.7 (1422.4) Jesus had carried with him to Jerusalem a letter from Salome, Zebedee's wife, introducing him to the former high priest, Annas, as "one, the same as my own son." Annas spent much time with him, personally taking him to visit the many academies of the Jerusalem religious teachers. While Jesus thoroughly inspected these schools and carefully observed their methods of teaching, he never so much as asked a single question in public. Although Annas looked upon Jesus as a great man, he was puzzled as to how to advise him. He recognized the foolishness of suggesting that he enter any of the schools of Jerusalem as a student, and yet he well knew Jesus would never be accorded the status of a regular teacher inasmuch as he had never been trained in these schools.

129:2.8 (1422.5) Presently the time of the Passover drew near, and along with the throngs from every quarter there arrived at Jerusalem from Capernaum, Zebedee and his entire family. They all stopped at the spacious home of Annas, where they celebrated the Passover as one happy family.

129:2.9 (1422.6) Before the end of this Passover week, by apparent chance, Jesus met a wealthy traveler and his son, a young man about seventeen years of age. These travelers hailed from India, and being on their way to visit Rome and various other points on the Mediterranean, they had arranged to arrive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hoping to find someone whom they could engage as interpreter for both and tutor for the son. The father was insistent that Jesus consent to travel with them. Jesus told him about his family and that it was hardly fair to go away for almost two years, during which time they might find themselves in need. Whereupon, this traveler from the Orient proposed to advance to Jesus the wages of one year so that he could intrust such funds to his friends for the safeguarding of his family against want. And Jesus agreed to make the trip.

129:2.10 (1423.1) Jesus turned this large sum over to John the son of Zebedee. And you have been told how John applied this money toward the liquidation of the mortgage on the Capernaum property. Jesus took Zebedee fully into his confidence regarding this Mediterranean journey, but he enjoined him to tell no man, not even his own flesh and blood, and Zebedee never did disclose his knowledge of Jesus' whereabouts during this long period of almost two years. Before Jesus' return

렛의 식구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으며, 거의 포기할 참이었다. 자기 아들 **요한**과 함께 여러 번 **나사렛**에 찾아온 **세베대**의 확신에 찬 말만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얼마간의 희망을 품게 했다.

이 시절에 **나사렛** 가족은 아주 잘 지냈으며; **유다**는 자기 몫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분의 몫까지 감당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었음에도,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룻**에게 습관처럼 매달 돈을 가져다줬다.

3.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서기 23년)

예수가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전부, **지중해** 지역 여행을 마무리 짓는 데 사용됐다. 이 체험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한도 내에서, 주요 사건들이 다음 문서부터 서술되는 내용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로마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는 내내, 여러 이유로, **예수**는 **다마스쿠스** 서기관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고린도**와 돌아오는 행로의 다른 경유지들에서는 **유대인** 가정교사로 알려졌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 다사한 기간이었다. 그는 이 여행 도중에 많은 동료들 사귀었지만, 이 체험은 그의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었고 사도들도 몰랐던, 그의 삶의 한 국면이었다. **예수**가 육신을 입은 삶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그가 이렇게 두루 여행했음을 (**벧새다**의 **세베대**를 제외하고) 아무도 몰랐다. 그의 친구 중에서 더러는 그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고; 더러는 **인도**로 갔다고 생각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가 한때 보조 카잔 자격으로(곧 선생 자격으로 거기에 오도록 초청 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었다는 가족의 견해를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팔레스틴**에 없는 동안, 문화와 지식의 도시에서 지냈다고 가족이 믿는 것을 내버려뒀다. **벧새다**에서 배를 만드는 **세베대**만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세베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생애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수고할 때마다, 반드시 **미가엘** 증여의 동기를 유념해야 한다. 너희가 길보기에 신비한 듯한 그의 수많은 행위의 의미를 납득하려면, 그가 너희 세계에 체류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는 과도한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주의를_쏟게 하는 개인 경력을 이루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다. 그

from this trip the family at Nazareth had just about given him up as dead. Only the assurances of Zebedee, who went up to Nazareth with his son John on several occasions, kept hope alive in Mary's heart.

129:2.11 (1423.2) During this time the Nazareth family got along very well; Jude had considerably increased his quota and kept up this extra contribution until he was married. Notwithstanding that they required little assistance, it was the practice of John Zebedee to take presents each month to Mary and Ruth, as Jesus had instructed him.

3. THE TWENTY-NINTH YEAR (A.D. 23)

129:3.1 (1423.3) The whole of Jesus' twenty-ninth year was spent finishing up the tour of the Mediterranean world. The main events, as far as we have permission to reveal these experiences, constitute the subjects of the narratives which immediately follow this paper.

129:3.2 (1423.4) Throughout this tour of the Roman world, for many reasons, Jesus was known as the *Damascus scribe*. At Corinth and other stops on the return trip he was, however, known as the *Jewish tutor*.

129:3.3 (1423.5) This was an eventful period in Jesus' life. While on this journey he made many contacts with his fellow men, but this experience is a phase of his life which he never revealed to any member of his family nor to any of the apostles. Jesus lived out his life in the flesh and departed from this world without anyone (save Zebedee of Bethsaida) knowing that he had made this extensive trip. Some of his friends thought he had returned to Damascus; others thought he had gone to India. His own family inclined to the belief that he was in Alexandria, as they knew that he had once been invited to go there for the purpose of becoming an assistant chazan.

129:3.4 (1423.6) When Jesus returned to Palestine, he did nothing to change the opinion of his family that he had gone from Jerusalem to Alexandria; he permitted them to continue in the belief that all the time he had been absent from Palestine had been spent in that city of learning and culture. Only Zebedee the boatbuilder of Bethsaida knew the facts about these matters, and Zebedee told no one.

129:3.5 (1423.7) In all your efforts to decipher the meaning of Jesus' life on Urantia, you must be mindful of the motivation of the Michael bestowal. If you would comprehend the meaning of many of his apparently strange doings, you must discern the purpose of his sojourn on your world. He was consistently careful not to build up an

는 동료에게 비범하거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동료 필사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고, 동시에 이 세상의 필사 생애를 사는 동안, 바로 그 **낙원 아버지** 뜻에 항상 복종하는 숭고한 과제에 전념했다.

이 신성한 증여를 배우는 모든 필사자 학생이, 그가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고 이 일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았음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보낸 **예수**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항상 유용할 것이다. 그가 **네바돈** 우주 전역에 있는 각 인간거주 구체 전부를 위하여, 필사자 본성의 육체 속에서 살았던 생애와 관련되는, 무언가 특별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었다.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그의 다사한 시절 이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된, 모든 세계의 경우에도 또한 그렇다. 마찬가지로, 이 지방우주의 모든 미래 역사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거주하게 될 모든 세계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참말이다.

이 기간에, 그리고 **로마** 세계를 여행한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은 그 시대와 세대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과의 교육적인 접촉과 훈련을 실제로 완성했다.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오기까지, 훈련을 위한 이 여행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유란시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생계를 이어가는지를 꼭 배우고자 했었다.

그의 **지중해** 지역 여행의 참 목적은, **사람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수백 명의 인간과 매우 가깝게 사귀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흑인과 백인, 교육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교양 있는 자와 없는 자, 동물적인 자와 영적인 자, 종교적인 자와 비종교적인 자, 도덕적인 자와 비도덕적인 자를 만났고 사랑했다.

예수는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물질적이고 필사적인 정신에 정통하는 자신의 인간적 과제에서 큰 진보를 이뤘고, 그에게 내주하는 **조울사**는 동일한 이 인간 지능의 상승과 영적 정복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이 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주 아들**임을 --모든 인간적 확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알았다. **조울사**는, 그가 이 **네바돈**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전에, 신성한 **아버지**와 관련해 **낙원**에서 겪은 체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점점 더 **사람의 아들**의 마음 속에 회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울사**는, **예수**가 영원한 과거의 다양한 시기 속에 사는 동안, 이전(以前)의 신성한 존재로 있을 때 가졌던 필요 불가결한 기억들을, **예수**의 인간 의식(意識) 속으로 조금씩 불러넣었다. **조울사**가 그에게 회상시킨, 그의 인간_이전(以前)의 마지막 사건은, **유란시아** 육신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각하는 인격을 양도하기 직전에, **살빙톤**의 **임마누엘**과 가졌던 송별 회담이었다. 그리고 인간_이전 존재로 있던 이

overattractive and attention-consuming personal career. He wanted to make no unusual or overpowering appeals to his fellow men. He was dedicated to the work of revealing the heavenly Father to his fellow mortals and at the same time was consecrated to the sublime task of living his mortal earth life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same Paradise Father.

129:3.6 (1424.1) It will also always be helpful in understanding Jesus' life on earth if all mortal students of this divine bestowal will remember that, while he lived this life of incarnation on Urantia, he lived it for his entire univers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nd inspiring associated with the life he lived in the flesh of mortal nature for every single inhabited sphere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Nebadon. The same is also true of all those worlds which have become habitable since the eventful times of his sojourn on Urantia. And it will likewise be equally true of all worlds which may become inhabited by will creatures in all the future history of this local universe.

129:3.7 (1424.2) The Son of Man, during the time and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is tour of the Roman world, practically completed his educational contact-training with the diversified peoples of the world of his day and generation. By the time of his return to Nazareth, through the medium of this travel-training he had just about learned how man lived and wrought out his existence on Urantia.

129:3.8 (1424.3) The real purpose of his trip around the Mediterranean basin was to *know men*. He came very close to hundreds of humankind on this journey. He met and loved all manner of men, rich and poor, high and low, black and white, educated and uneducated, cultured and uncultured, animalistic and spiritual, religious and irreligious, moral and immoral.

129:3.9 (1424.4) On this Mediterranean journey Jesus made great advances in his human task of mastering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and his indwelling Adjuster made great progress in the ascension and spiritual conquest of this same human intellect. By the end of this tour Jesus virtually knew — with all human certainty — that he was a Son of God, a Creator S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Adjuster more and more was able to bring up in the mind of the Son of Man shadowy memories of his Paradise experience in association with his divine Father ere he ever came to organize and administer this local universe of Nebadon. Thus did the Adjuster, little by little, bring to Jesus' human consciousness those necessary memories of his former and divine existence in the various epochs of the well-nigh eternal past. The last episode of his prehuman experience to be brought forth by the Adjuster was his farewell conference with Immanuel of Salvington just before his surrender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억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던 바로 그날, **예수**의 의식 속에 명료해졌다.

4. 인간 예수

지켜보던 지방우주의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에게, 이 **지중해연안** 여행은, 적어도 십자가형과 필사자의 죽음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예수**의 전체 세상 체험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곧 이어진 공적{公的} 사역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은 매혹적인 **개인 사역** 기간이었다. 이 독특한 사건이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때 그가 여전히 **나사렛**의 목수이고, **가버나움**의 조선훈{造船工}이고, **다마스쿠스**의 학자였기 때문이며; 그는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완전히 숙지하는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조율사**는 필사자 정체성을 온전히 통달하거나 서로 보완하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아들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종교 체험은--곧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스물아홉 살 되던 해 동안, 정점에 이르는 성취에 거의 도달했다. 영적 발전의 이런 체험은, **사도 조율사**가 도착한 순간부터, 사람의 물질 정신과, 영이 기증한 정신 사이에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완성되고 확정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점진적 성장을 계속했다--이 두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은, **요단**에서 그가 세례 받던 날, **사람의 아들**이, 그 영역에 육신화 된 필사자로서, 완성과 완결성을 달성했던 그 체험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정식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그는 영으로 내주하는 **낙원 아버지**의 현존과 개인적인 소통을 이루기에 효과적인 방법들, 점점 더 완성시켜 나갔다. 그는 실제적인 삶, 충만한 삶, 그리고 진실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을 육신 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세계들에서 인간이 사는 인생의 전체 합계와 내용물의 실제성에 상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안다.

사람의 아들은 최상의 기쁨으로부터 심오한 슬픔에 이르기까지, 인간 감정의 넓은 영역을 모두 체험했다. 그는 명량한 아이였고 보기 드문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존재였으며, 마찬가지로 “슬픔 위에 비탄이 겹쳐진 사람”이었다. 영적 감각에서 보면, 그는 필사자 인생을 통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체험했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인간 실존의 사회적 양극단을

of conscious personality to embark upon the Urantia incarnation. And this final memory picture of prehuman existence was made clear in Jesus' consciousness on the very day of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4. THE HUMAN JESUS

129:4.1 (1424.5) To the onlooking celestial intelligences of the local universe, this Mediterranean trip was the most enthralling of all Jesus' earth experiences, at least of all his career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crucifixion and mortal death. This was the fascinating period of his *personal ministry* in contrast with the soon-following epoch of public ministry. This unique episode was all the more engrossing because he was at this time still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boatbuilder of Capernaum, the scribe of Damascus; he was still the Son of Man. He had not yet achieved the complete mastery of his human mind; the Adjuster had not fully mastered and counterparted the mortal identity. He was still a man among men.

129:4.2 (1425.1) The purely human religious experience — the personal spiritual growth — of the Son of Man well-nigh reached the apex of attainment during this, the twenty-ninth year. This experience of spiritual development was a consistently gradual growth from the moment of the arrival of his Thought Adjuster until the day of the completion and confirmation of that natural and normal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mind of man and the mind-endowment of the spirit — the phenomenon of the making of these two minds one, the experience which the Son of Man attained in completion and finality, as an incarnated mortal of the realm, on the day of his baptism in the Jordan.

129:4.3 (1425.2) Throughout these years, while he did not appear to engage in so many seasons of formal communion with his Father in heaven, he perfected increasingly effective methods of personal communication with the indwelling spirit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He lived a real life, a full life, and a truly normal, natural, and average life in the flesh. He knows from personal experience the equivalent of the actuality of the entire sum and substance of the living of the life of human beings on the material worlds of time and space.

129:4.4 (1425.3) The Son of Man experienced those wide ranges of human emotion which reach from superb joy to profound sorrow. He was a child of joy and a being of rare good humor; likewise was he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In a spiritual sense, he did live through the mortal life from the bottom to the top,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From a material point of view, he might appear to have escaped living through both social

통해서 삶을 도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체험에 대해서 지적{知的}으로 완전히 정통하게 됐다.

예수는 생각과 느낌,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역들에서 진화하고 상승한 필사자들이 갖는 충동과 자극을 안다. 그는 육체적 출발부터, 지적, 영적 자아성의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는 --심지어 인간적 죽음까지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는 지적 및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런 평범하고 친숙한 인생 기간들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필사자밖에 성취하지 못한, 즉 인간과 **조울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 같은, 더욱 고귀하고 진보된 국면들 역시 완전히 체험했다. 그리하여 그는 필사적 사람의 전체 생애를 체험했는데, 너희 세상에 산 것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모든 다른 진화하는 세계에 산 것과 같고, 심지어 빛과 생명의 상태 속에 정착된 모든 세계 가운데 최고로 진보된 세계에서 산 것과도 같다.

그가 필사 육체의 모습 속에서 살았던 이런 완전한 삶이, 그가 이 세상에 있던 동시대에 우연히 같이 있었던, 동료 필사자들로부터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찬성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육신 속에 살았던 그 생애가, 아주 동일한 시기에, 그리고 동일한 그 인격의 _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필사적 사람에게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고, 동시에 **무한한 창조주**에게는 만족할 정도로 완전한 인간 인격의 현존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립시킨 것이라고,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참된 최상의 목적이었다. 그는 그 당시 또는 모든 다른 시대의 어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에 대한 온전하고 세부적인 본보기로서 **유란시아**에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그의 충분하고 풍성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삶에서, 우리 모두가 절묘하게 모범적이고 신성하게 영감 주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인간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모든 인간이 모방하도록 어떤 본보기를 설정하려고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비를 베풀어 육체 속에서 인생을 살았고, 너희도 모두 이 땅에서 바로 그 자비로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 시대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필사자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라는 모범을 그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설정해 줬다. 너희는 그의 생애와 똑같이 살기를 열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예수**는 이 지방 우주 전체 영역에서 모든 시대의 필사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본보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승이 시작되는 세계들에서 온갖 우주를 지나 **하보나**를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모든 **낙원** 순례자에게, 영원토록 영감{靈感}을 주고 지침이 되고 있다. **예수**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시간세계

extremes of human existence, but intellectually he became wholly familiar with the entire and complete experience of humankind.

129:4.5 (1425.4) Jesus knows about the thoughts and feelings, the urges and impulses, of the evolutionary and ascendant mortals of the realms, from birth to death. He has lived the human life from the beginnings of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selfhood up through infancy, childhood, youth, and adulthood — even to the human experience of death. He not only passed through these usual and familiar human periods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advancement, but he also fully experienced those higher and more advanced phases of human and Adjuster reconciliation which so few Urantia mortals ever attain. And thus he experienced the full life of mortal man, not only as it is lived on your world, but also as it is lived on all other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even on the highest and most advanced of all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129:4.6 (1425.5) Although this perfect life which he liv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may not have received the unqualified and universal approval of his fellow mortals, those who chanced to be his contemporaries on earth, still, the life which Jesus of Nazareth lived in the flesh and on Urantia did receive full and unqualified acceptance by the Universal Father as constituting at one and the same time, and in one and the same personality-life, the fullness of the revelation of the eternal God to mortal man and the presentation of perfected human personality to the satisfaction of the Infinite Creator.

129:4.7 (1425.6) And this was his true and supreme purpose. He did not come down to live on Urantia as the perfect and detailed example for any child or adult, any man or woman, in that age or any other. True it is, indeed, that in his full, rich, beautiful, and noble life we may all find much that is exquisitely exemplary, divinely inspiring, but this is because he lived a true and genuinely human life. Jesus did not live his life on earth in order to set an example for all other human beings to copy. He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by the same mercy ministry that you all may live your lives on earth; and as he lived his mortal life in his day and as *he was*, so did he thereby set the example for all of us thus to live our lives in our day and as *we are*. You may not aspire to live his life, but you can resolve to *live your lives* even as, and by the same means that, he lived his. Jesus may not be the technical and detailed example for all the mortals of all ages on all the realms of this local universe, but he is everlastingly the inspiration and guide of all Paradise pilgrims from the worlds of initial ascension up through a universe of universes and on through Havona to Paradise. Jesus is the *new and living way* from man to God, from the partial to the perfect, from the earthly to the heavenly, from

에서 영원세계로 가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다.

나사렛 예수는,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로서의 필사자에게 요구되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스물아홉 살 되던 해 말쯤에 사실상 끝냈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이제는 **하나님**께 명백히 나타내게 될 기회를 기다리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는 서른 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뤘다.

time to eternity.

^{129:4.8 (1426:1)} By the end of the twenty-ninth year Jesus of Nazareth had virtually finished the living of the life required of mortals as sojourners in the flesh. He came on earth the fullness of God to be manifest to man; he had now become well-nigh the perfection of man awaiting the occasion to become manifest to God. And he did all of this before he was thirty years of age.

제 130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 129

유랜시아 책

131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30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섹션

소개

1. 옴바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2. 가이사랴에서
3. 알렉산드리아에서
4. 실체에 관한 강연
5. 크레테 섬에서
6. 두려움에 빠진 젊은이
7. 카르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론
8. 나폴리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소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스물여덟 살 되던 해 대부분과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전체 기간이 **로마** 세계의 여행에 사용됐다. **예수**와 두 명의 **인도** 원주민은--곧 **고노드**와 아들 **가니드**--서기 22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일정에 맞춰 여행했고, **예수**는 이듬해인 서기 23년 12월 10일에 **페르시아**만의 **카락스** 시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옴바**를 경유해서 **가이사랴**로 갔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크레테**의 **라세아**로 향해했다. **크레테**에서 **구레네**를 거쳐 **카르타고**로 갔다. **카르타고**에서 **나폴리**로 가는 배를 탔고, **말타**와 **시라큐스**와 **메시나**를 경유했다. 그들은 **나폴리**로부터 **카푸아**로 갔고,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아피아 도로**를 여행했다.

그들은 **로마**에 머문 다음에 육로를 이용하여 **타렌툼**으로 갔고, 거기서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해했으며, **니코폴리스**와 **고린도**에 들렀다. **아덴**으로

PAPER 130
ON THE WAY TO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At Joppa — Discourse on Jonah
2. At Caesarea
3. At Alexandria
4. Discourse on Reality
5. On the Island of Crete
6. The Young Man Who Was Afraid
7. At Carthage — Discourse on Time and Space
8. On the Way to Naples and Rome

INTRODUCTION

130:0.1 (1427.1) THE tour of the Roman world consumed most of the twenty-eighth and the entire twenty-ninth year of Jesus' life on earth. Jesus and the two natives from India — Gonod and his son Ganid — left Jerusalem on a Sunday morning, April 26, A.D. 22. They made their journey according to schedule, and Jesus said good-bye to the father and son in the city of Charax on the Persian Gulf on the tenth day of December the following year, A.D. 23.

130:0.2 (1427.2) From Jerusalem they went to Caesarea by way of Joppa. At Caesarea they took a boat for Alexandria. From Alexandria they sailed for Lasea in Crete. From Crete they sailed for Carthage, touching at Cyrene. At Carthage they took a boat for Naples, stopping at Malta, Syracuse, and Messina. From Naples they went to Capua, whence they traveled by the Appian Way to Rome.

130:0.3 (1427.3) After their stay in Rome they went overland to Tarentum, where they set sail for Athens in Greece, stopping at Nicopolis and

부터 **드로아**를 경유해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에서 **구브로**로 향해했고, 가는 도중에 **로데**에 들렀다. **구브로**에서 상당한 시간을 방문과 휴식으로 보냈고, 그다음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향해했다. **안디옥**에서 **시돈**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고,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거기서 대상로를 통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타프사커스**와 **라리싸**를 지나갔다. **바빌론**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우르**와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수싸**로 갔다. 그들은 **수싸**에서 **카락스**로 갔고, 거기서 **고노드**와 **가니드**는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났다.

고노드와 **가니드**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원리를 **예수**가 습득한 것은, **다마스쿠스**에서 일했던 4개월 동안이었다. 거기에 있는 동안, 그는 **고노드**의 고향 지역 출신인 한 **인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어**를 어느 **인도** 언어로 번역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고했다.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예수**는 **가니드**를 가르치는 일과, **고노드**의 사업상 회담 및 사교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대략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매일 나머지 시간은 그의 재량에 맡겨졌고, 그는 동료 사람들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그 영역의 필사자들과 그토록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이 몇 해 사이에 특색을 이루는 활동이었다.

예수는, 직접 관찰하고 실제로 접촉함으로써, **서양**과 **레반트**의 비교적 높은 물질적 및 지적 문명을 스스로 습득했으며; **고노드**와 그의 영리한 아들로부터는, **인도**와 **중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고노드** 자신은, **인도** 시민이면서 황색 인종의 제국까지 세 번이나 두루 여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가니드**는, 이 길고 친밀한 교제 기간에 **예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 무척 좋아졌고, 젊은이의 아버지는 **예수**에게, 자신과 함께 **인도**로 가자고 여러 번 청했지만, **예수**는 언제나 **팔레스틴**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청을 사양했다.

1. 옴바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그들이 **옴바**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는 제혁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필리스틴** 통역자 **가디아**를 만났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노드**의 대리점들이 이 **시몬**과 많은 거래를 했으므로, **고노드**와 그의 아들은,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시몬**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이 **옴바**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와 **가디아**는 다정한 친구가 됐다. 이 젊은 **필리스틴** 사람은 진리 탐구자였다. **예수**는 진리 수여자였으며; **유란시아**에서 그 세대의 사람

Corinth. From Athens they went to Ephesus by way of Troas. From Ephesus they sailed for Cyprus, putting in at Rhodes on the way. They spent considerable time visiting and resting on Cyprus and then sailed for Antioch in Syria. From Antioch they journeyed south to Sidon and then went over to Damascus. From there they traveled by caravan to Mesopotamia, passing through Thapsacus and Larissa. They spent some time in Babylon, visited Ur and other places, and then went to Susa. From Susa they journeyed to Charax, from which place Gonod and Ganid embarked for India.

130:0.4 (1427.4) It was while working four months at Damascus that Jesus had picked up the rudiments of the language spoken by Gonod and Ganid. While there he had labored much of the time on translations from Greek into one of the languages of India, being assisted by a native of Gonod's home district.

130:0.5 (1427.5) On this Mediterranean tour Jesus spent about half of each day teaching Ganid and acting as interpreter during Gonod's business conferences and social contacts. The remainder of each day, which was at his disposal, he devoted to making those close personal contacts with his fellow men, those intimate associations with the mortals of the realm, which so characterized his activities during these years that just preceded his public ministry.

130:0.6 (1427.6) From firsthand observation and actual contact Jesus acquainted himself with the higher material and intellectual civilization of the Occident and the Levant; from Gonod and his brilliant son he learned a great deal about the civilization and culture of India and China, for Gonod, himself a citizen of India, had made three extensive trips to the empire of the yellow race.

130:0.7 (1427.7) Ganid, the young man, learned much from Jesus during this long and intimate association. They developed a great affection for each other, and the lad's father many times tried to persuade Jesus to return with them to India, but Jesus always declined, pleading the necessity for returning to his family in Palestine.

1. AT JOPPA — DISCOURSE ON JONAH

130:1.1 (1428.1) During their stay in Joppa, Jesus met Gadiab, a Philistine interpreter who worked for one Simon a tanner. Gonod's agents in Mesopotamia had transacted much business with this Simon; so Gonod and his son desired to pay him a visit on their way to Caesarea. While they tarried at Joppa, Jesus and Gadiab became warm friends. This young Philistine was a truth seeker. Jesus was a truth giver; he was the truth for that generation on Urantia. When a great truth seeker

들에게 진리였다. 위대한 진리 탐구자와 위대한 진리 수여자가 만났을 때, 새로운 진리를 체험함으로써 해방시키는 큰 깨우침이 탄생된다.

어느 날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와 필리스틴 청년이 해변을 거닐었고, 가디아는 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이 히브리 전승에 매우 정통함을 알지 못한 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불행한 항해를 위해 승선했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그 배를 가리켰다. 그는 설명을 마치면서,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실제로 요나를 삼켰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때 예수는, 이 젊은이의 인생이 이런 전통에 크게 영향 받아왔고,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말미암아, 의무로부터 멀리 도망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에게 심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며; 따라서 예수는, 실질적 생활을 하도록 가디아에게 현재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토대를 갑자기 무너뜨릴 만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요나들이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현재의 사명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 할 때마다 항상, 진리의 능력과 정의의 힘이 지시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의 즉각적인 통제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다. 의무로부터 도피하면 진리가 희생된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요나들이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찾지 않는 한, 빛과 생명을 위한 헌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결국, 어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기심이라는 다루기 힘든 고래들과 비참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런 낙심된 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열망할 때에는--곧 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해 목말라 할 때에는, 아무 것도 그들을 계속 속박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빛을 찾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속박에서 구출할 것이며, 삶의 악한 환경이, 새로운 봉사와 더 현명한 삶을 위한 새 기회가 있는 마른 땅 위로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가디아는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됐고, 그들은 밤이 깊도록 해변에서 이야기했으며,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나중에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된, 도르가의 집에서 어느 날 저녁 베드로와 인상적인 토론을 벌였던 가디아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디아는, 부유한 가죽 상인 시몬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결심을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예수가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동료 필사자들과 함께 했던 개인 행적을 서술할 때, 우리가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이 문서가 제시된 당시에 사용되던 유란시아의 현대 언어로 그의 말쑤를 자유롭게 번역할 것이다.)

and a great truth giver meet, the result is a great and liberating enlightenment born of the experience of new truth.

130:1.2 (1428.2) One day after the evening meal Jesus and the young Philistine strolled down by the sea, and Gadiah, not knowing that this “scribe of Damascus” was so well versed in the Hebrew traditions, pointed out to Jesus the ship landing from which it was reputed that Jonah had embarked on his ill-fated voyage to Tarshish. And when he had concluded his remarks, he asked Jesus this question: “But do you suppose the big fish really did swallow Jonah?” Jesus perceived that this young man’s life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is tradition, and that its contemplation had impressed upon him the folly of trying to run away from duty; Jesus therefore said nothing that would suddenly destroy the foundations of Gadiah’s present motivation for practical living. In answering this question, Jesus said: “My friend, we are all Jonahs with lives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and at all times when we seek to escape the present duty of living by running away to far-off enticements, we thereby put ourselves in the immediate control of those influences which are not directed by the powers of truth and the forces of righteousness. The flight from duty is the sacrifice of truth. The escape from the service of light and life can only result in those distressing conflicts with the difficult whales of selfishness which lead eventually to darkness and death unless such God-forsaking Jonahs shall turn their hearts, even when in the very depths of despair, to seek after God and his goodness. And when such disheartened souls sincerely seek for God —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there is nothing that can hold them in further captivity. No matter into what great depths they may have fallen, when they seek the light with a whole heart, the spirit of the Lord God of heaven will deliver them from their captivity; the evil circumstances of life will spew them out upon the dry land of fresh opportunities for renewed service and wiser living.”

130:1.3 (1428.3) Gadiah was mightily moved by Jesus’ teaching, and they talked long into the night by the seaside, and before they went to their lodgings, they prayed together and for each other. This was the same Gadiah who listened to the later preaching of Peter, became a profound believer in Jesus of Nazareth, and held a memorable argument with Peter one evening at the home of Dorcas. And Gadiah had very much to do with the final decision of Simon, the wealthy leather merchant, to embrace Christianity.

130:1.4 (1428.4) (In this narrative of the personal work of Jesus with his fellow mortals on this tour of the Mediterranean, we shall, in accordance with our permission, freely translate his words into modern phraseology current on Urantia at the time of this

예수는 **가디아**와 가진 마지막 만남에서, 선악 {善惡}에 대해 토론했다. 이 **필리스틴** 청년은 세상에 악이 선과 공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괴로워했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인한 슬픔을 겪도록 하시며; 결국, 악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둘 다 창조했다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믿었지만, **예수**는 그런 오류를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했다: “형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선하시고, 그의 선하심은 너무 크고 실체적이어서, 악에 속하는 사소하고 비실체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정적 악이 있을 자리가 절대 없다. 악은, 선에 저항하고 아름다움을 거부하며 진리에 불충하는 자들의 성숙되지 못한 선택이고 경솔한 과실이다. 악은 미숙함을 오용한 것이거나, 무지로 인한 파괴적이고 왜곡된 작용일 뿐이다. 악은 어리석게 빛을 거부한 결과로 수반되는 필연적 어두움이다. 악은 어둡고 거짓된 것이며, 알면서 받아들이고 고의로 지지할 때, 그 악이 죄가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심으로써, 빛과 생명이라는 긍정적 통로에 부정적 잠재성도 만드셨지만; 지성 있는 피조물 의지가 삶의 방식을 잘못 선택하여 악한 실책을 의도적으로 범하기 전에는, 그런 실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런 악들은 강박하고 반역적인 피조물의 고의적이고 계획된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죄로 발전한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과 악을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인데, 추수하는 시기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자연이 허용하는 것과 똑같다.” **가디아**는 그 뒤에 이어진 토론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말의 실제 의미가 마음 속에 명쾌하게 되자,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에 충분히 만족했다.

2. 가이사라에서

예수와 친구들은, 그들이 타고 가려던 배의 커다란 노 하나가 쪼개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오래 **가이사라**에 머물렀다. 선장은 새로운 노가 만들어질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기로 결정했다. 이 과제를 맡아서 해결할 숙련된 목수가 부족했으므로, **예수**는 자원해서 도와줬다. 매일 저녁시간에, **예수**와 친구들은 항구 주위에서 산책로로 쓰이는 아름다운 제방위를 거닐었다. **가니드**는 그 도시의 수리{水利} 체계와, 조수{潮水}를 이용해서 도로와 하수도를 씻어 내리도록 꾸민 기법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젊은 **인도인**은 **아우구스 투스**의 신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신전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았고, **로마** 황제의 거대

presentation.)

130:1.5 (1429.1) Jesus' last visit with Gadiah had to do with a discussion of good and evil. This young Philistine was much troubled by a feeling of injustice because of the presence of evil in the world alongside the good. He said: "How can God, if he is infinitely good, permit us to suffer the sorrows of evil; after all, who creates evil?" It was still believed by many in those days that God creates both good and evil, but Jesus never taught such error. In answering this question, Jesus said: "My brother, God is love; therefore he must be good, and his goodness is so great and real that it cannot contain the small and unreal things of evil. God is so positively good that there is absolutely no place in him for negative evil. Evil is the immature choosing and the unthinking misstep of those who are resistant to goodness, rejectful of beauty, and disloyal to truth. Evil is only the misadaptation of immaturity or the disruptive and distorting influence of ignorance. Evil is the inevitable darkness which follows upon the heels of the unwise rejection of light. Evil is that which is dark and untrue, and which, when consciously embraced and willfully endorsed, becomes sin.

130:1.6 (1429.2) "Your Father in heaven, by endowing you with the power to choose between truth and error, created the potential negative of the positive way of light and life; but such errors of evil are really nonexistent until such a time as an intelligent creature wills their existence by mischoosing the way of life. And then are such evils later exalted into sin by the knowing and deliberate choice of such a willful and rebellious creature. This is why our Father in heaven permits the good and the evil to go along together until the end of life, just as nature allows the wheat and the tares to grow side by side until the harvest." Gadiah was fully satisfied with Jesus' answer to his question after their subsequent discussion had made clear to his mind the real meaning of these momentous statements.

2. AT CAESAREA

130:2.1 (1429.3) Jesus and his friends tarried in Caesarea beyond the time expected because one of the huge steering paddles of the vessel on which they intended to embark was discovered to be in danger of cleaving. The captain decided to remain in port while a new one was being made. There was a shortage of skilled woodworkers for this task, so Jesus volunteered to assist. During the evenings Jesus and his friends strolled about on the beautiful wall which served as a promenade around the port. Ganid greatly enjoyed Jesus' explanation of the water system of the city and the technique whereby the tides were utilized to flush the city's streets and sewers. This youth of India

한 동상이 그 위에서 있었다. 거기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세 사람은 좌석이 2만 개나 되는 거대한 원형극장의 공연에 참석했고, 그날 밤에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그리스** 연극을 보러 갔다. 이런 것들은 **가니드**가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들에 대해 **예수**에게 많이 질문했다. 그들은 셋째 날 아침에 총독 관저를 공식 방문했는데, **가이사라**는 **팔레스틴**의 수도이자 **로마** 행정관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숙소에서 **몽골**에서 온 한 상인도 묵었고, **극동**에서 온 이 사람은 **그리스어**에 유창했기 때문에, **예수**는 여러 차례 긴 시간 그를 만났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인생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매일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그의 지혜로운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이 상인은 **도교** 신자였는데, 그리하여 보편적 **신격** 교리를 깊이 믿는 사람이 됐다. **몽골**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 진보된 진리를 이웃과 사업 동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런 활동의 직접 결과로, 그의 장남은 **도교**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젊은이는 일생을 통하여 이 증진된 진리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유일한 하나님**--곧 **하늘의 최상급 통치자**--에 대한 교리에 헌신적으로 충성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초기 **그리스도교** 동쪽 분파가, **예루살렘**의 형제들보다 **예수**의 교훈을 더 신실하게 믿는 동안, **베드로** 같은 태도로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바울** 같은 태도로 **인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으며, 그 곳의 영적 토양은, 당시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무척 적당했다. **필라델피아인**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런 **예수**의 교훈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이 **아시아** 사람들의 정신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가 **서방**에서 이룩했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노를 만드는 일을 하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하루는 그들이 조천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예수**가 이따금 던지는 말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 둔다는 사실을 **예수**가 암시했을 때, 이 젊은 **그리스인 아낙산드**는, “**하나님**들이 내게 관심 둔다면, 잔인하고 불공평한 이 작업장 감독을 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 그는 깜짝 놀랐다: “네가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알고 공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들은 네가 이 부정{不正}한 사람을 이런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셨는지도 모른다. 아마 너는, 다른 모든 사

was much impressed with the temple of Augustus, situated upon an elevation and surmounted by a colossal statue of the Roman emperor. The second afternoon of their stay the three of them attended a performance in the enormous amphitheater which could seat twenty thousand persons, and that night they went to a Greek play at the theater. These were the first exhibitions of this sort Ganid had ever witnessed, and he asked Jesus many questions about them. On the morning of the third day they paid a formal visit to the governor's palace, for Caesarea was the capital of Palestine and the residence of the Roman procurator.

130:2.2 (1429.4) At their inn there also lodged a merchant from Mongolia, and since this Far-Easterner talked Greek fairly well, Jesus had several long visits with him. This man was much impressed with Jesus' philosophy of life and never forgot his words of wisdom regarding “the living of the heavenly life while on earth by means of daily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This merchant was a Taoist, and he had thereby become a strong believer in the doctrine of a universal Deity. When he returned to Mongolia, he began to teach these advanced truths to his neighbors and to his business associates, and as a direct result of such activities, his eldest son decided to become a Taoist priest. This young man exerted a great influence in behalf of advanced truth throughout his lifetime and was followed by a son and a grandson who likewise were devotedly loyal to the doctrine of the One God — the Supreme Ruler of Heaven.

130:2.3 (1430.1) While the eastern branch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having its headquarters at Philadelphia, held more faithfully to the teachings of Jesus than did the Jerusalem brethren, it was regrettable that there was no one like Peter to go into China, or like Paul to enter India, where the spiritual soil was then so favorable for planting the seed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These very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held by the Philadelphians, would have made just such an immediate and effective appeal to the minds of the spiritually hungry Asiatic peoples as did the preaching of Peter and Paul in the West.

130:2.4 (1430.2) One of the young men who worked with Jesus one day on the steering paddle became much interested in the words which he dropped from hour to hour as they toiled in the shipyard. When Jesus intimated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his children on earth, this young Greek, Anaxand, said: “If the Gods are interested in me, then why do they not remove the cruel and unjust foreman of this workshop?” He was startled when Jesus replied, “Since you know the ways of kindness and value justice, perhaps the Gods have brought this erring man near that you may lead him into this

람이 이 형제를 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소금일 것인데; 네가 맛을 잃지 않았다면 그렇다.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악한 방식이 네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면에서, 그가 네 주인이다. 선의 힘으로 악을 극복함으로써, 너희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네 안에 있는 선에게 공정하고 활기찬 기회를 주면, 네 안에 있는 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압도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필사자로서 실존하는 동안에, 실책과 악을 이기는 투쟁 가운데 하나에서 얻는 영적 에너지와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물질적 인생에서 동업자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모험은 없다. 그것은 영적 어둠 속에 앉아 있는 필사자에게 영적 빛의 생생한 경로가 되는, 기묘하고 변화시키는 체험이다. 네가 이 사람보다 진리로 더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의 부족함이 너를 자극했어야 한다. 너는, 헤엄치지 못하는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닷가에 서 있을 겁쟁이는 분명히 아니다! 그 육체가 물에 빠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의 혼이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나!"

아낙산드는 **예수**의 말에 크게 감동받았다. 이윽고 그는 **예수**가 한 말을 상관에게 전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신의 혼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말씀이 **가이사라**에 전파됐을 때, 하나는 **그리스인**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인**인 두 사람 다, **빌립**의 전도를 믿고, **빌립**이 설립한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됐다. 후에 이 젊은 **그리스인**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된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의 청지기가 됐다. **아낙산드**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히는 날까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공급했는데, 그때 그는, 2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피다가 사고로 죽었다.

이 무렵에 **가니드**는, 선생님이 동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히 사역하는 일에 어떻게 여가 시간을 활용했는지 알기 시작했고, 젊은 **인도인**은 **예수**가 이런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동기를 알아보고자 했다.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왜 그토록 끊임없이 전념하십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가니드**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도 낯선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체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네 형제임을 네가 발견하는데, 새로 발견한 형제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느냐? 형제자매들과 사귀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삶에서 최상의 체험이다."

이 논의는 밤늦도록 계속됐고, 그러는 중에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도 불리는 선택하는 인간 정신 행위 사이의 차이를 말해달라

better way. Maybe you are the salt which is to make this brother more agreeable to all other men; that is, if you have not lost your savor. As it is, this man is your master in that his evil ways unfavorably influence you. Why not assert your mastery of evil by virtue of the power of goodness and thus become the master of all relations between the two of you? I predict that the good in you could overcome the evil in him if you gave it a fair and living chance. There is no adventure in the course of mortal existence more enthralling than to enjoy the exhilaration of becoming the material life partner with spiritual energy and divine truth in one of their triumphant struggles with error and evil. It is a marvelous and transforming experience to become the living channel of spiritual light to the mortal who sits in spiritual darkness. If you are more blessed with truth than is this man, his need should challenge you. Surely you are not the coward who could stand by on the seashore and watch a fellow man who could not swim perish! How much more of value is this man's soul floundering in darkness compared to his body drowning in water!"

130:2.5 (1430.3) Anaxand was mightily moved by Jesus' words. Presently he told his superior what Jesus had said, and that night they both sought Jesus' advice as to the welfare of their souls. And later on, after the Christian message had been proclaimed in Caesarea, both of these men, one a Greek and the other a Roman, believed Philip's preaching and became prominent members of the church which he founded. Later this young Greek was appointed the steward of a Roman centurion, Cornelius, who became a believer through Peter's ministry. Anaxand continued to minister light to those who sat in darkness until the days of Paul's imprisonment at Caesarea, when he perished, by accident, in the great slaughter of twenty thousand Jews while he ministered to the suffering and dying.

130:2.6 (1431.1) Ganid was, by this time, beginning to learn how his tutor spent his leisure in this unusual personal ministry to his fellow men, and the young Indian set about to find out the motive for these incessant activities. He asked, "Why do you occupy yourself so continuously with these visits with strangers?" And Jesus answered: "Ganid, no man is a stranger to one who knows God. In the experience of finding the Father in heaven you discover that all men are your brothers, and does it seem strange that one should enjoy the exhilaration of meeting a newly discovered brother? To become acquainted with one's brothers and sisters, to know their problems and to learn to love them, is the supreme experience of living."

130:2.7 (1431.2) This was a conference which lasted well into the night, in the course of which the young man requested Jesus to tell him the difference

고 예수께 요청했다. **예수**가 말한 요지는 이랬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이요, 가능성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처럼 돼가는 점진적 체험이며,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표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길이요, 필사자가 그렇게 되려 하고, 행하려 하는 그 목표의 총합이자 내용이다. 의지는 자아를_의식하는 존재의 의도적 선택인데, 지성의 반응에 기초한 결단과_실행으로 인도한다.

그날 오후에 **예수**와 **가니드**는 아주 영리한 양치기 개 한 마리와 즐겁게 놀았는데, **가니드**는 문득, 개도 혼을 갖고 있는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으며, **예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개는 자기 주인, 즉 물질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정신은 갖고 있지만, 영{靈}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는 영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영적 체험도 즐길 수 없다. 개는, 본능에서 나오고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정신 능력은 영적인 힘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곧 그것은 비교적 더 고상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분별한 결과가 아니며,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될 수 없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사적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 즉 영적 책임을 느끼는 속성과 영원히 생존할 잠재력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되게 한다.” **예수**는 이어서, 동물에게는 그런 정신 능력이 없으므로, 언어를 발전시키거나 내세{來世}에 생존하는, 인격자와 동등한 어떤 것을 체험하기란 영원토록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날 **예수**의 설명으로 인해, **가니드**는 사람의 혼이 동물의 몸 속에 윤회{輪廻}한다는 믿음을 다시는 갖지 않게 됐다.

다음 날, **가니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했고, **고노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물로 실존하는 물질적 문제와 관계있는 현세의 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완전히 몰두하는 인간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 전심을 다해 내린 도덕적 결정과 무조건적인 영적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내주{內住}하는 신성한 영과 점진적으로 하나가 돼가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살아남는 가치로 점점 더 변화된다--즉 신성한 봉사로 끝없이 진보한다.”

바로 이날, 우리는 중대한 진리를 처음 들었는데,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의지란, 주관적 의식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의 현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형태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영적 생각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 창조성을 갖게 될 수 있다.

between the will of God and that human mind act of choosing which is also called will. In substance Jesus said: The will of God is the way of God, partnership with the choice of God in the face of any potential alternative. To do the will of God, therefore, is the progressive experie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like God, and God is the source and destiny of all that is good and beautiful and true. The will of man is the way of man, the sum and substance of that which the mortal chooses to be and do. Will is the deliberate choice of a self-conscious being which leads to decision-conduct based on intelligent reflection.

130:2.8 (1431.3) That afternoon Jesus and Ganid had both enjoyed playing with a very intelligent shepherd dog, and Ganid wanted to know whether the dog had a soul, whether it had a will, and in response to his questions Jesus said: “The dog has a mind which can know material man, his master, but cannot know God, who is spirit; therefore the dog does not possess a spiritual nature and cannot enjoy a spiritual experience. The dog may have a will derived from nature and augmented by training, but such a power of mind is not a spiritual force, neither is it comparable to the human will, inasmuch as it is not reflective — it is not the result of discriminating higher and moral meanings or choosing spiritual and eternal values. It is the possession of such powers of spiritual discrimination and truth choosing that makes mortal man a moral being, a creature endowed with the attributes of spiritual responsibility and the potential of eternal survival.” Jesus went on to explain that it is the absence of such mental powers in the animal which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 animal world to develop language in time or to experience anything equivalent to personality survival in eternity. As a result of this day's instruction Ganid never again entertained belief in the transmigration of the souls of men into the bodies of animals.

130:2.9 (1431.4) The next day Ganid talked all this over with his father, and it was in answer to Gonod's question that Jesus explained that “human wills which are fully occupied with passing only upon temporal decisions having to do with the material problems of animal existence are doomed to perish in time. Those who make wholehearted moral decisions and unqualified spiritual choices are thus progressively identified with the indwelling and divine spirit, and thereby are they increasingly transformed into the values of eternal survival — unending progression of divine service.”

130:2.10 (1431.5) It was on this same day that we first heard that momentous truth which, stated in modern terms, would signify: “Will is that manifestation of the human mind which enables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to express itself objectively and to experience the phenomenon of aspiring to be Godlike.” And it is in this same

sense that every reflective and spiritually minded human being can become *creative*.

3.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이사라 방문은 뜻 깊었고, 배가 준비되자, **예수**와 두 친구는 어느 날 정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출발했다.

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향해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항해를 매우 즐겼고, **예수**는 그의 여러 질문에 대답하기 바빴다. 그들이 항구에 다가가자, 젊은이는 거대한 **파로스** 등대를 보고 흥분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본토를 연결시켜 놓은 섬에 위치했으며, 또한 두 개의 큰 항구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상무역의 교차로 구실을 하게 했다. 이 거대한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으며, 후대의 모든 등대의 기원이 됐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 장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가니드**가 감탄사를 연발할 때 **예수**가 말했다: “그리고 애야, **인도**로 돌아가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너는 이 등대처럼 될 것이며, 구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길을 그토록 원하는 모든 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네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가니드**는 **예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로마** 세계의 서방 문명권에만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큰 실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예수**의 교훈을, 1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자들이 지켰던 것처럼, 다양한 집단의 **아시아** 종교인들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항구에 도착한 지 네 시간 후에, 길고 넓은 도로, 즉 폭은 30미터이고 길이는 5마일 정도 되고,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의 서쪽 끝까지 뻗어 있는 길의, 동쪽 끝부분 가까운 장소에 숙박 장소를 정했다. 그 도시에서 제일 볼만한 것들--곧 대학(박물관), 도서관, **알렉산더**의 왕릉, 궁정, **넵툰** 신전, 극장, 체육관--을 먼저 돌아본 후에, **고노드**는 자신의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했고, **예수**와 **가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모든 문명세계: 즉 **그리스**, **로마**, **팔레스틴**, **파르티아**, **인도**,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 가져온, 거의 100만 권에 달하는 서적이 수집돼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 **가니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집된 **인도** 문헌을 봤으며;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 매일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히브리** 성서가 여기서 **그리스어**로 번역됐던 것에 관해서 말해 줬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계속 토론했고, 그때마다 **예수**는 이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서, 그의 정신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3. AT ALEXANDRIA

130:3.1 (1432:1) It had been an eventful visit at Caesarea, and when the boat was ready, Jesus and his two friends departed at noon one day for Alexandria in Egypt.

130:3.2 (1432:2) The three enjoyed a most pleasant passage to Alexandria. Ganid was delighted with the voyage and kept Jesus busy answering questions. As they approached the city's harbor, the young man was thrilled by the great lighthouse of Pharos, located on the island which Alexander had joined by a mole to the mainland, thus creating two magnificent harbors and thereby making Alexandria the maritime commercial crossroads of Africa, Asia, and Europe. This great lighthouse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and was the forerunner of all subsequent lighthouses. They arose early in the morning to view this splendid lifesaving device of man, and amidst the exclamations of Ganid Jesus said: "And you, my son, will be like this lighthouse when you return to India, even after your father is laid to rest; you will become like the light of life to those who sit about you in darkness, showing all who so desire the way to reach the harbor of salvation in safety." And as Ganid squeezed Jesus' hand, he said, "I will."

130:3.3 (1432:3) And again we remark that the early teach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made a great mistake when they so exclusiv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western civilization of the Roman world. The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held by the Mesopotamian believers of the first century, would have been readily received by the various groups of Asiatic religionists.

130:3.4 (1432:4) By the fourth hour after landing they were settled near the eastern end of the long and broad avenue, one hundred feet wide and five miles long, which stretched on out to the western limits of this city of one million people. After the first survey of the city's chief attractions — university (museum), library, the royal mausoleum of Alexander, the palace, temple of Neptune, theater, and gymnasium — Gonod addressed himself to business while Jesus and Ganid went to the library, the greatest in the world. Here were assembled nearly a million manuscripts from all the civilized world: Greece, Rome, Palestine, Parthia, India, China, and even Japan. In this library Ganid saw the largest collection of Indian literature in all the world; and they spent some time here each day throughout their stay in Alexandria. Jesus told Ganid about the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into Greek at this place. And they discussed again and again all the religions of the world, Jesus endeavoring to point out to this

애썼다.“그러나 **야훼**는 **멜기세덱**의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발전된 **하나님**이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중에는 **멜기세덱**이 살고 가르치면서 모든 세계에 선생들을 보낸 중심지였던 바로 그 땅을 차지했으며; 결국 **유대인**의 종교는 다른 어떤 세상 종교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로서 더 분명하게 묘사했다.”

가니드는 **예수**의 지도하에, 비록 그것들이 열등한 신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주의 신격**을 알아본 모든 세계 종교 교훈을 수집했다.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토론 끝에,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에 참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종교는 거의 황제 숭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철학은 갖고 있지만 인격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종교는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신비 종파들은 제외했는데, 여러 종파로 인해 혼란되고, 그들의 다양한 **신격** 개념이, 더 오래된 다른 종교들로부터 파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번역자들이 비록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으나, **가니드**가 이런 선별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결론을 첨가한 것은, **로마** 체류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는, 세상의 신성시되는 문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자들은 모두, 대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성품 및 그의 필사적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예수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박물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박물관은 희귀한 물건을 소장한 곳이라기보다, 예술, 과학, 문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이었다. 거기서는 학식 있는 교수들이 매일 강의했고, 당시에는 이곳이 **서양**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다. **예수**는 날마다 **가니드**에게 강의를 해석해 줬으며; 둘째 주가 되던 어느 날, **가니드**가 큰소리로 말했다:“**예수아 선생님**, 당신은 이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당신은 내게 말해준 위대한 것들을 그들에게도 일어서서 말해줘야 합니다.그들은 많은 생각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이 일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너는 감탄하는 학생이지만, 이 선생들은 너와 내가 저희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영성화 되지 않은 채 학문을 배움으로써 생기는 자만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얼음판 같은 것이다. 참된 선생은 항상 배우는 자로 남음으로써 지적 성실성을 유지한다.”

알렉산드리아는 **서양**의 모든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고, **로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격조 높은 도시였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 즉 통치하는 70인 장로로 이뤄진 **알렉산드리아 산헤드린**의 행정 중심지가 있었다.

young mind the truth in each, always adding: “But Yahweh is the God developed from the revelations of Melchizedek and the covenant of Abraham. The Jews were the offspring of Abraham and subsequently occupied the very land wherein Melchizedek had lived and taught; and from which he sent teachers to all the world; and their religion eventually portrayed a clearer recognition of the Lord God of Israel as the Universal Father in heaven than any other world religion.”

130:3.5 (1432.5) Under Jesus' direction Ganid made a collection of the teachings of all those religions of the world which recognized a Universal Deity, even though they might also give more or less recognition to subordinate deities. After much discussion Jesus and Ganid decided that the Romans had no real God in their religion, that their religion was hardly more than emperor worship. The Greeks, they concluded, had a philosophy but hardly a religion with a personal God. The mystery cults they discarded because of the confusion of their multiplicity, and because their varied concepts of Deity seemed to be derived from other and older religions.

130:3.6 (1433.1) Although these translations were made at Alexandria, Ganid did not finally arrange these selections and add his own personal conclusions until near the end of their sojourn in Rome. He was much surprised to discover that the best of the authors of the world's sacred literature all more or less clear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God and were much in agreement with regard to his character and his relationship with mortal man.

130:3.7 (1433.2) Jesus and Ganid spent much time in the museum during their stay in Alexandria. This museum was not a collection of rare objects but rather a university of fine art, science, and literature. Learned professors here gave daily lectures, and in those times this was the intellectual center of the Occidental world. Day by day Jesus interpreted the lectures to Ganid; one day during the second week the young man exclaimed: “Teacher Joshua, you know more than these professors; you should stand up and tell them the great things you have told me; they are befogged by much thinking. I shall speak to my father and have him arrange it.” Jesus smiled, saying: “You are an admiring pupil, but these teachers are not minded that you and I should instruct them. The pride of unspiritualized learning is a treacherous thing in human experience. The true teacher maintains his intellectual integrity by ever remaining a learner.”

130:3.8 (1433.3) Alexandria was the city of the blended culture of the Occident and next to Rome the largest and most magnificent in the world. Here was located the largest Jewish synagogue in the world,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Alexandria

고노드가 사업상 거래하는 많은 사람 중에 **알렉산더**라는 어떤 **유대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의 형제인 **필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종교 철학자였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화시키는, 칭찬할 만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가니드**와 **예수**는 **필로**의 교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그의 강의에 참석하려고 계획했지만, 이 유명한 **헬라파 유대인**은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내내 병석에 누워있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학**과 교리 가운데 많은 것을 칭찬했지만, 자신의 민족 중에서 일부가 준 불확실한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 체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자**를 아는 생생한 체험을 즐기도록 사람을 인도할 때에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젊은이에게 가슴 깊이 새겨줬다.

4. 실체에 관한 강연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가니드**와 **예수**는, **플라톤**의 교훈을 강의하는, 정부 소속 교수 한 사람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만났다. **예수**는, 박식한 **그리스인** 교수의 말을 통역했지만, **그리스** 철학을 반박하는 자신의 교훈은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날 밤에 **고노드**는 사업 관계로 다른 곳에 있었으며;교수가 자리를 떠나자, 선생과 그의 제자는 **플라톤**의 학설에 관해 숨김없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예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 본질적인 영적 실체의 그림자라는 이론을 다루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동의를 했던 반면, 젊은이의 생각에 좀 더 신뢰할만한 기초를 마련해주려고 애썼으며;그리하여 그는 우주에서의 실체의 본질에 관한 긴 설명을 시작했다.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자**다. 유한한 창조에 속하는 물질적 사물은, **낙원 원형**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주 정신**이 시_공간에 반향{反響}한 결과다. 물리적 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지적 세계에서 자아_의식이, 그리고 영{靈} 세계에서 진보하는 자아성이, **지존자**의 실체를 구성한다--이 실체들은, 우주적인 규모로 투사되고, 영원한 관계성 속에 결합되며, 자질의 완전성 및 가치의 신성{神性}과 함께 체험된다. 그러나 인과관계{因果關係}, 지성, 및 영적 체험과 관련된 **원본 인격체**는, 영원히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다. 무한한 가치와 신성한 특성을 갖는 영원한 우주 안에서도 모든 사물이 변할 수 있고 또한 자주 변하는데, 절대적인 물질 상태, 절대적인 지적 용납, 또는 절대적인 영적 정체성을 달성한 것들과 **절대자**들은 예외다.

Sanhedrin, the seventy ruling elders.

130:3.9 (1433.4) Among the many men with whom Gonod transacted business was a certain Jewish banker, Alexander, whose brother, Philo, was a famous religious philosopher of that time. Philo was engaged in the laudable but exceedingly difficult task of harmonizing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Ganid and Jesus talked much about Philo's teachings and expected to attend some of his lectures, but throughout their stay at Alexandria this famous Hellenistic Jew lay sick abed.

130:3.10 (1433.5) Jesus commended to Ganid much in the Greek philosophy and the Stoic doctrines, but he impressed upon the lad the truth that these systems of belief, like the indefinite teachings of some of his own people, were religions only in the sense that they led men to find God and enjoy a living experience in knowing the Eternal.

4. DISCOURSE ON REALITY

130:4.1 (1433.6) The night before they left Alexandria Ganid and Jesus had a long visit with one of the government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who lectured on the teachings of Plato. Jesus interpreted for the learned Greek teacher but injected no teaching of his own in refutation of the Greek philosophy. Gonod was away on business that evening; so, after the professor had departed, the teacher and his pupil had a long and heart-to-heart talk about Plato's doctrines. While Jesus gave qualified approval of some of the Greek teachings which had to do with the theory that the material things of the world are shadowy reflections of invisible but more substantial spiritual realities, he sought to lay a more trustworthy foundation for the lad's thinking; so he began a long dissertation concerning the nature of reality in the universe. In substance an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said to Ganid:

130:4.2 (1434.1) The source of universe reality is the Infinite. The material things of finite creation are the time-space repercussions of the Paradise Pattern and the Universal Mind of the eternal God. Causation in the physical world, self-consciousness in the intellectual world, and progressing selfhood in the spirit world — these realities, projected on a universal scale, combined in eternal relatedness, and experienced with perfection of quality and divinity of value — constitute the *reality of the Supreme*. But in an ever-changing universe the Original Personality of causation, intelligence, and spirit experience is changeless, absolute. All things, even in an eternal universe of limitless values and divine qualities, may, and oftentimes do, change except the Absolutes and that which has attained the physical

유한한 피조물이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과 **지존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완결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은, 물리 세계의 움직임과 그 물질 현상 속에서 변화를 계속 체험한다. 그들은 또한 영적 우주를 계속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성이 진보하는 것을 여전히 자각하며, 지적 시공우주 {時空宇宙 코스모스}에 대한 깊어지는 감상과 반응 속에서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여전히 자각한다. 오직 완전함, 조화, 및 의지의 일치 속에서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 될 수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의 신성한 뜻에 자신의 유한한 개인 의지를 항상 맞춤으로써, 시간 속에서나 영원 속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만, 그런 신성의 상태를 달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 속에서 언제나 주권을 가져야 하고 그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

눈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결코 원근을 감지하고자 바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눈으로만 바라보는 물질적인 과학자, 영적 신비가, 또는 우화{寓話} 작가는, 우주 실체의 진정한 깊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피조물이 체험하는 모든 진정한 가치는 인식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

정신이 없는 인과관계는, 조잡하고 단순한 상태에서부터 세련되고 복잡한 상태로 진화할 수 없으며, 또한 영{靈}이 개재되지 않은 체험도, 영원히 생존하는 신성한 성품을 시간세계의 필사자의 물질 정신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 무한한 **신격**의 특징을 유일하게 나타내는 우주의 한 가지 속성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격**에 도달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인격을 끝없이 창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인격은, 궁극적인 변화와 공존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런 모든 변화가 있는 바로 그 와중에, 그리고 그 후로 언제까지나 그 정체성을 간직하는, 바로 그 시공우주 재능이요, 우주 실체의 바로 그 측면이다.

생명은, 우주 상황에서 생기는 요구와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시공우주 인과법칙이 적응하는 것이며, **우주 정신**의 작용,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 불꽃이 활성화됨으로써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생명의 의미는 그 적응력에 있으며;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_의식하는 높이까지-- 진보할 수 있는 그 기량에 있다.

자아_의식을 갖는 생명체의 우주에 대한 잘못된 적응이 시공우주에 부조화를 가져온다. 인격 의지가 우주들의 경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지적 고립, 즉 인격이 격리됨으로 종결된다. 내주하는 영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실존이 영적으로 중지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진보하는 지성적 생명이, 그 자체로, 신성한 **창조주**의

status, intellectual embrace, or spiritual identity which is absolute.

130:4.3 (1434.2) The highest level to which a finite creature can progress is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knowing of the Supreme. And even then such beings of finality destiny go on experiencing change in the motions of the physical world and in its material phenomena. Likewise do they remain aware of selfhood progression in their continuing ascension of the spiritual universe and of growing consciousness in their deepening appreciation of, and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cosmos. Only in the perfection, harmony, and unanimity of will can the creature become as one with the Creator; and such a state of divinity is attained and maintained only by the creature's continuing to live in time and eternity by consistently conforming his finite personal will to the divine will of the Creator. Always must the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be supreme in the soul and dominant over the mind of an ascending son of God.

130:4.4 (1434.3) A one-eyed person can never hope to visualize depth of perspective. Neither can single-eyed material scientists nor single-eyed spiritual mystics and allegorists correctly visualize and adequately comprehend the true depths of universe reality. All true values of creature experience are concealed in depth of recognition.

130:4.5 (1434.4) Mindless causation cannot evolve the refined and complex from the crude and the simple, neither can spiritless experience evolve the divine characters of eternal survival from the material minds of the mortals of time. The one attribute of the universe which so exclusively characterizes the infinite Deity is this unending creative bestowal of personality which can survive in progressive Deity attainment.

130:4.6 (1434.5) Personality is that cosmic endowment, that phase of universal reality, which can coexist with unlimited change and at the same time retain its identity in the very presence of all such changes, and forever afterward.

130:4.7 (1434.6) Life is an adaptation of the original cosmic causation to the demands and possibilities of universe situations, and it comes into being by the action of the Universal Mind and the activation of the spirit spark of the God who is spirit. The meaning of life is its adaptability; the value of life is its progressability — even to the heights of God-consciousness.

130:4.8 (1434.7) Misadaptation of self-conscious life to the universe results in cosmic disharmony. Final divergence of personality will from the trend of the universes terminates in intellectual isolation, personality segregation. Loss of the indwelling spirit pilot supervenes in spiritual cessation of existence. Intelligent and progressing life becomes

뜻을 나타내는 목적 있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전체가, **만유의 아버지**를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분투한다.

지성이 베푸는 높은 준{準}_영적 보살핌을 제외하면, 사람은 동물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신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배심과 지혜를 갖지 못하는) 동물은, 의식 위의 의식인 초의식(超意識)을 체험할 수 없다. 동물의 정신은 오직 객관적인 우주만 의식한다.

지식은 물질적 정신, 즉 사실을_분별하는 정신의 영역이다. 진리는 **하나님**을 앞에 대해서 의식하는, 영적으로 부여된 지성의 영역이다. 지식은 논증할 수 있는 것이며; 진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은 정신의 소유물이며; 진리는 혼, 즉 진보하는 자아의 체험이다. 지식은 비{非}영적 수준의 기능이며; 진리는 우주의 정신_영 수준의 한국면이다. 물질 정신의 눈은, 사실에 입각한 지식 세계를 감지하며; 영성화 된 지능의 눈은, 참된 가치 세계를 식별한다. 동시성을 지니고 조화된 이 두 견해가 실제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그 안에서 지혜는 점진적으로 몸소 체험함으로 우주 현상을 해석한다.

오류는(곧 악은) 불완전함의 대가{代價}다. 불완전함의 특성, 즉 잘못된_적용의 실상은, 비판적 관찰과 과학적 분석으로 물질 수준에서 드러나며; 인간의 체험으로 도덕 수준에서 드러난다. 악의 현존은, 정신이 부정확하고 진화하는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따라서 악은, 우주를 얼마나 불완전하게 해석하는지, 그 척도이기도 하다.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은, 지혜의 획득, 즉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또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기획에 선천적으로 내포돼 있다. 오류는 상대적 불완전성의 그림자인데, 사람이 완전한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우주 경로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돼있다. 오류는(곧 악은) 실제 우주 특성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불완전한 유한자들의 불완전성이 **지존자와 궁극자**의 상승하는 수준들에 관련됨으로써 관측되는 상대성에 불과하다.

예수가 비록 이 모든 것을 젊은이가 납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말했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가니드**의 눈은 무거워졌고 곧 잠들었다. 그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크레테** 섬에 있는 **라씨**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나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젊은이는 악에 관해 물어볼 더 많은 질문이 여전히 있었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악은 상대성 개념이다. 악은, **무한하신 분**의 영원한 실체들이 우주에 표현하는 생생한 빛을 시

then, in and of itself, an incontrovertible proof of the existence of a purposeful universe expressing the will of a divine Creator. And this life, in the aggregate, struggles toward higher values, having for its final goal the Universal Father.

130:4.9 (1435.1) Only in degree does man possess mind above the animal level aside from the higher and quasi-spiritual ministrations of intellect. Therefore animals (not having worship and wisdom) cannot experience super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consciousness. The animal mind is only conscious of the objective universe.

130:4.10 (1435.2) Knowledge is the sphere of the material or fact-discerning mind. Truth is the domain of the spiritually endowed intellect that is conscious of knowing God. Knowledge is demonstrable; truth is experienced. Knowledge is a possession of the mind; truth an experience of the soul, the progressing self. Knowledge is a function of the nonspiritual level; truth is a phase of the mind-spirit level of the universes. The eye of the material mind perceives a world of factual knowledge; the eye of the spiritualized intellect discerns a world of true values. These two views, synchronized and harmonized, reveal the world of reality, wherein wisdom interprets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 in terms of progressive personal experience.

130:4.11 (1435.3) Error (evil) is the penalty of imperfection. The qualities of imperfection or facts of misadaptation are disclosed on the material level by critical observation and by scientific analysis; on the moral level, by human experience. The presence of evil constitutes proof of the inaccuracies of mind and the immaturity of the evolving self. Evil is, therefore, also a measure of imperfection in universe interpretation. The possibility of making mistakes is inherent in the acquisition of wisdom, the scheme of progressing from the partial and temporal to the complete and eternal, from the relative and imperfect to the final and perfected. Error is the shadow of relative incompleteness which must of necessity fall across man's ascending universe path to Paradise perfection. Error (evil) is not an actual universe quality; it is simply the observation of a relativity in the relatedness of the imperfection of the incomplete finite to the ascending levels of the Supreme and Ultimate.

130:4.12 (1435.4) Although Jesus told all this to the lad in language best suited to his comprehension,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Ganid was heavy of eye and was soon lost in slumber. They rose early the next morning to go aboard the boat bound for Lasea on the island of Crete. But before they embarked, the lad had still further questions to ask about evil, to which Jesus replied:

130:4.13 (1435.5) Evil is a relativity concept. It arises out of the observation of the imperfections which

공우주가 가림에 따라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함을, 사물과 존재가 가득한 그런 유한한 우주가 목격함으로써 생긴다.

잠재적 악은, 무한성과 영원성을 시·공간·제 한 속에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는, 필연적 불완전함에 내재한다. 완성된 것들의 현존 앞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 실체이며, 총명하게 선택할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영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여러 가치 수준을 정립시킨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피조물의 정신이 간직하는, **무한자**에 대한 불완전하고 유한한 개념은, 그 자체로 **잠재적인 악(惡)**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지적 부조화와 영적 부족함을 타당한 영적 방식으로 고쳐나가는 동안, 부당하게 결함을 증대시키는 잘못된, 실제 악을 실천하는 것과 동등하다.

정지돼 있고 죽어있는 모든 개념은 잠재적으로 악하다. 상대적이고 생생한 진리의 유한한 그림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정지된 개념은 언제나, 과학, 정치, 사회, 종교 등의 발전을 지체시킨다. 정지된 개념은, 어떤 지식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너희가 상대성 개념에 잘못 빠져들어서, 시공우주 정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주가 조정된다는 사실과, **지존자**의 영광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주가 안정되도록 통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라.

5. 크레테 섬에서

여행자들은 단지 섬을 산보하거나 등산하면서 즐기려는 목적으로 **크레테**에 갔다. 당시 **크레테인**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부러워할만한 아무런 평판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혼을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삶으로 인도했고,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것이 후대의 복음 교훈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바울**이 나중에 그들의 교회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티투스(디도)**를 그 섬으로 보내면서 그들에 관해 가혹한 말을 했음에도, **예수**는 이 **크레테인**을 사랑했다.

크레테의 산기슭에서, **예수**는 종교에 관해 **고노드**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저 아이가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마스쿠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종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노드**가 **예수**에게, 자신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처음 제의한 것은, 바로 이 섬에 머무는 동안이었고, **가니드**는 **예수**가 그 계획에 동의하리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

appear in the shadow cast by a finit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as such a cosmos obscures the living light of the universal expression of the eternal realities of the Infinite One.

130:4.14 (1435.6) Potential evil is inherent in the necessary incompleteness of the revelation of God as a time-space-limited expression of infinity and eternity. The fact of the partial in the presence of the complete constitutes relativity of reality, creates necessity for intellectual choosing, and establishes value levels of spirit recognition and response. The incomplete and finite concept of the Infinite which is held by the temporal and limited creature mind is, in and of itself, *potential evil*. But the augmenting error of unjustified deficiency in reasonable spiritual rectification of these originally inherent intellectual disharmonies and spiritual insufficiencies, is equivalent to the realization of *actual evil*.

130:4.15 (1436.1) All static, dead, concepts are potentially evil. The finite shadow of relative and living truth is continually moving. Static concepts invariably retard science, politics, society, and religion. Static concepts may represent a certain knowledge, but they are deficient in wisdom and devoid of truth. But do not permit the concept of relativity so to mislead you that you fail to recognize the co-ordination of the universe under the guidance of the cosmic mind, and its stabilized control by the energy and spirit of the Supreme.

5. ON THE ISLAND OF CRETE

130:5.1 (1436.2) The travelers had but one purpose in going to Crete, and that was to play, to walk about over the island, and to climb the mountains. The Cretans of that time did not enjoy an enviable reputation among the surrounding peoples. Nevertheless, Jesus and Ganid won many souls to higher levels of thinking and living and thu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quick reception of the later gospel teachings when the first preachers from Jerusalem arrived. Jesus loved these Cretans, notwithstanding the harsh words which Paul later spoke concerning them when he subsequently sent Titus to the island to reorganize their churches.

130:5.2 (1436.3) On the mountainside in Crete Jesus had his first long talk with Gonod regarding religion. And the father was much impressed, saying: “No wonder the boy believes everything you tell him, but I never knew they had such a religion even in Jerusalem, much less in Damascus.” It was during the island sojourn that Gonod first proposed to Jesus that he go back to India with them, and Ganid was delighted with the thought that Jesus might consent to such an arrangement.

어느 날 **가니드**가 **예수**에게, 왜 대중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애야, 모든 것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조바심을 내도, 너를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너는 모든 문제에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간만이, 나무에 달린 꽃과일을 저절로 익게 한다. 시간이 흘러야 한 계절 뒤에 다음 계절이 오고, 해가 진 후에야 해가 뜨는 법이다. 나는 지금 너와 네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가는 중이고,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내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세**와 그의 40년에 걸친 신중한 기다림과 꾸준한 준비에 대해서 **가니드**에게 이야기했다.

페어 항구를 방문하던 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가니드**에게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기억은, 고향 **인도**의 신분계층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에게 항상 불러 일으켰다. 어떤 술 취한 주정꾼이 큰길에서 노예 소녀를 폭행하고 있었다. **예수**가 소녀의 곤경을 봤을 때, 즉시 달려가서 처녀를 미치광이의 공격에서 구했다. 겁에 질린 아이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강한 오른팔을 내뻗어서 그 격분한 남자를 때놓은 후에, 화내며 주먹을 허공으로 휘두르다가 지칠 때까지 그 변변치 못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가니드**는 **예수**를 도와 그 일에 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그의 아버지가 만류했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소녀는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을 알 수 있었으며,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가 육신을 입었던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동료와 직접 가장 가깝게 부딪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에 왜 술 취한 남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가니드**에게 설명해야 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가니드**는, 적어도 그 남자가 소녀를 때린 만큼 그도 역시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6. 두려움에 빠진 젊은이

그들이 산을 올라가던 중에, **예수**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풀죽은 한 젊은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동료들과의 교제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이는, 혼자 있기 위해서 언덕을 찾았으며; 열등감과 절망감에 더욱 빠져들었다. 이런 천부적 성향은, 그가 열두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성장하면서 현저하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증대돼 왔다.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여! 이처럼 아름다운 날 어찌하여 그렇게 풀이 죽어 있나?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나도 정말 기쁘겠구나.”

젊은이는 대꾸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러

130:5.3 (1436.4) One day when Ganid asked Jesus why he had not devoted himself to the work of a public teacher, he said: “My son, everything must await the coming of its time. You are born into the world, but no amount of anxiety and no manifestation of impatience will help you to grow up. You must, in all such matters, wait upon time. Time alone will ripen the green fruit upon the tree. Season follows season and sundown follows sunrise only with the passing of time. I am now on the way to Rome with you and your father, and that is sufficient for today. My tomorrow is wholly in the hands of my Father in heaven.” And then he told Ganid the story of Moses and the forty years of watchful waiting and continued preparation.

130:5.4 (1436.5) One thing happened on a visit to Fair Havens which Ganid never forgot; the memory of this episode always caused him to wish he might do something to change the caste system of his native India. A drunken degenerate was attacking a slave girl on the public highway. When Jesus saw the plight of the girl, he rushed forward and drew the maiden away from the assault of the madman. While the frightened child clung to him, he held the infuriated man at a safe distance by his powerful extended right arm until the poor fellow had exhausted himself beating the air with his angry blows. Ganid felt a strong impulse to help Jesus handle the affair, but his father forbade him. Though they could not speak the girl's language, she could understand their act of mercy and gave token of her heartfelt appreciation as they all three escorted her home. This was probably as near a personal encounter with his fellows as Jesus ever had throughout his entire life in the flesh. But he had a difficult task that evening trying to explain to Ganid why he did not smite the drunken man. Ganid thought this man should have been struck at least as many times as he had struck the girl.

6. THE YOUNG MAN WHO WAS AFRAID

130:6.1 (1437.1) While they were up in the mountains, Jesus had a long talk with a young man who was fearful and downcast. Failing to derive comfort and courage from association with his fellows, this youth had sought the solitude of the hills; he had grown up with a feeling of helplessness and inferiority. These natural tendencies had been augmented by numerous difficult circumstances which the lad had encountered as he grew up, notably, the loss of his father when he was twelve years of age. As they met, Jesus said: “Greetings, my friend! why so downcast on such a beautiful day? If something has happened to distress you, perhaps I can in some manner assist you. At any rate it affords me real pleasure to proffer my services.”

130:6.2 (1437.2) The young man was disinclined to

자 **예수**는 그의 혼에게 두 번째로 접근하며 말했다: “나는 네가 사람을 피해 이 언덕으로 올라온 것을 이해하며; 물론 네가 나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네가 이 언덕의 길을 잘 아는지 알고 싶은데; 오솔길의 방향을 안다면, 혹시 **피닉스**로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때 이 젊은이는 이 산을 잘 알았고, 정말로 **피닉스**에 이르는 길을 **예수**에게 말해주고 싶은 흥미를 느꼈으며, 그래서 모든 오솔길을 땅에 그리면서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예수**가 작별 인사를 마친 후, 마치 떠나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네가 울적한 마음으로 홀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피닉스**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을 안내 받는 그런 관대한 도움을 받고 나서, 네가 이 산기슭에 머무는 동안 마음 속에 추구한 운명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답해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은, 공정하지도, 잘한 일도 아닌 것 같다. 네가 **피닉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여러 번 그 길을 지나다닌 것처럼, 나도, 지금은 네가 좌절 한 그 희망과 무너진 그 포부의 도성에 이르는 그 길을 잘 안다. 그리고 네가 내게 도움을 청했으므로,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거의 압도당하여 겨우 더듬거리면서, “하지만--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젊은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 애야. 말이 아닌 네 간절한 표정으로 내 마음에 요청했다. 애야, 동료들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 실의와 절망의 표정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강한 호소력이 있음이 느껴진다. 슬픔에 빠진 자아를 사람의 형제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애정 어린 활동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봉사하는 오솔길과 행복의 대로에 관해 내가 말해주는 동안 함께 앉아있자.”

그때 젊은이는 **예수**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했으며, 자신의 개인적 슬픔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 달라고, 무릎 꿇고 **예수**에게 간청했다. **예수**가 말했다: “친구여, 일어나라! 남자답게 일어서라! 너는 작은 적들에 둘러싸이고 많은 장애물에 방해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우주의 큰 것과 실제적인 것들이 네 편이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땅에서 가장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네게도 인사하지 않느냐? 봐라, --너는 튼튼한 육체와 강인한 근육을 가졌으니-- 네 신체 조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낫다. 물론, 네가 이런 산기슭에 앉아서 실제적이든지 공상적이든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는 동안에는 그 신체가 아무 쓸모없다. 그러나 네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일을 서둘러서 시작한다면, 너는 그 육체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불행한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만, 불가능하다. 삶에 대한 네 문제들과 너 자신은 실체이며; 네가 살아있는 한, 그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러나 네 정신이 맑고 유능

talk, and so Jesus made a second approach to his soul, saying: “I understand you come up in these hills to get away from folks; so, of course, you do not want to talk with me, but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you are familiar with these hills; do you know the direction of the trails? and, perchance, could you inform me as to the best route to Phenix?” Now this youth was very familiar with these mountains, and he really became much interested in telling Jesus the way to Phenix, so much so that he marked out all the trails on the ground and fully explained every detail. But he was startled and made curious when Jesus, after saying good-bye and making as if he were taking leave, suddenly turned to him, saying: “I well know you wish to be left alone with your disconsolation; but it would be neither kind nor fair for me to receive such generous help from you as to how best to find my way to Phenix and then unthinkingly to go away from you without making the least effort to answer your appealing request for help and guidance regarding the best route to the goal of destiny which you seek in your heart while you tarry here on the mountainside. As you so well know the trails to Phenix, having traversed them many times, so do I well know the way to the city of your disappointed hopes and thwarted ambitions. And since you have asked me for help, I will not disappoint you.” The youth was almost overcome, but he managed to stammer out, “But — I did not ask you for anything — ” And Jesus, laying a gentle hand on his shoulder, said: “No, son, not with words but with longing looks did you appeal to my heart. My boy, to one who loves his fellows there is an eloquent appeal for help in your countenance of discouragement and despair. Sit down with me while I tell you of the service trails and happiness highways which lead from the sorrows of self to the joys of loving activities in the brotherhood of men and in the service of the God of heaven.”

130:6.3 (1437.3) By this time the young man very much desired to talk with Jesus, and he knelt at his feet imploring Jesus to help him, to show him the way of escape from his world of personal sorrow and defeat. Said Jesus: “My friend, arise! Stand up like a man! You may be surrounded with small enemies and be retarded by many obstacles, but the big things and the real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universe are on your side. The sun rises every morning to salute you just as it does the most powerful and prosperous man on earth. Look — you have a strong body and powerful muscles — your physical equipment is better than the average. Of course, it is just about useless while you sit out here on the mountainside and grieve over your misfortunes, real and fancied. But you could do great things with your body if you would hasten off to where great things are waiting to be done. You are trying to run away from your unhappy self, but it cannot be done. You and your

하다는 것을 다시 바라봐라. 네 강인한 육체는, 그 육체를 지시하는 영리한 정신을 갖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네 정신을 작동시키고; 네 지능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고; 생각 없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해라.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네가 지금까지처럼, 비참한 두려움의 노예, 그리고 패배와 좌절에 묶인 하인에 머물기보다는, 네 정신이 너 자신의 용감한 동맹군이 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네 실제 성취 잠재력은, 만약 네가 두려움의 족쇄로부터 네 정신을 풀어주고, 그리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침체의 악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기를 네 영적 본성이 시작할 수 있다면, 네 정신이 그 자체를 통제하고 육신을 활성화 시키도록, 네 안에 사는 영이 자극하고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신앙이 새롭고 완전히 지배적인, 네 동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현존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이며, 이 사랑이 네 혼을 그토록 빨리 채워서 넘치게 할 것인데, 이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 마음에 탄생된 그 의식 때문이다.

“애야,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과 용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헌신된 봉사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삶에 몰두하기까지 재조정될 때, 마찬가지로 우주에 대해서도 재조정될 것이며; 너는 다시 태어났고--곧 영으로 탄생했고, 그리하여 네 전체 생애는 승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근심거리는 네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 낙심은 네게 격려가 될 것이며; 난관은 네게 도전이 될 것이며; 장애물은 네게 자극물이 될 것이다. 젊음이여, 깨어나라! 굶질거리고 도망 다니는 겁쟁이의 삶에 작별을 고하라. 그리고 서둘러 네 임무로 돌아가서, 육체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써,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의 기품 있는 봉사에 헌신하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훌륭한 봉사하도록 돼있는 한 필사자로서 살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행운아인 이 젊은이는, 나중에 **크레테**에서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됐고, **크레테** 신자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티투스**의 가까운 동역자가 됐다.

여행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어느 날 정오에 상쾌한 마음으로 북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으며, **구레네**에서 이틀 머물렀다. 여기서 **예수**와 **가니드**는, 짐 실은 소달구지에 받쳐서 부상당한 **루포**라는 젊은이에게 응급치료를 해줬다. 그들이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시몬**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는 자기 아들에게 한때 친절을 베풀었던 낯선 사람의 십자가를, 후일에 **로마** 병사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대신 지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problems of living are real; you cannot escape them as long as you live. But look again, your mind is clear and capable. Your strong body has an intelligent mind to direct it. Set your mind at work to solve its problems; teach your intellect to work for you; refuse longer to be dominated by fear like an unthinking animal. Your mind should be your courageous ally in the solution of your life problems rather than your being, as you have been, its abject fear-slave and the bond servant of depression and defeat. But most valuable of all, your potential of real achievement is the spirit which lives within you, and which will stimulate and inspire your mind to control itself and activate the body if you will release it from the fetters of fear and thus enable your spiritual nature to begin your deliverance from the evils of inaction by the power-presence of living faith. And then, forthwith, will this faith vanquish fear of men by the compelling presence of that new and all-dominating love of your fellows which will so soon fill your soul to overflowing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which has been born in your heart that you are a child of God.

130:6.4 (1438.1) “This day, my son, you are to be reborn, re-established as a man of faith, courage, and devoted service to man, for God’s sake. And when you become so readjusted to life within yourself, you become likewise readjusted to the universe; you have been born again — born of the spirit — and henceforth will your whole life become one of victorious accomplishment. Trouble will invigorate you; disappointment will spur you on; difficulties will challenge you; and obstacles will stimulate you. Arise, young man! Say farewell to the life of cringing fear and fleeing cowardice. Hasten back to duty and live your life in the flesh as a son of God, a mortal dedicated to the ennobling service of man on earth and destined to the superb and eternal service of God in eternity.”

130:6.5 (1438.2) And this youth, Fortune, subsequently became the leader of the Christians in Crete and the close associate of Titus in his labors for the uplift of the Cretan believers.

130:6.6 (1438.3) The travelers were truly rested and refreshed when they made ready about noon one day to sail for Carthage in northern Africa, stopping for two days at Cyrene. It was here that Jesus and Ganid gave first aid to a lad named Rufus, who had been injured by the breakdown of a loaded oxcart. They carried him home to his mother, and his father, Simon, little dreamed that the man whose cross he subsequently bore by orders of a Roman soldier was the stranger who once befriended his son.

7. 카르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론

7. AT CARTHAGE — DISCOURSE ON TIME AND SPACE

카르타고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동료 여행 자들과 함께, 사회, 정치, 및 상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훌륭한 이야기꾼임을 처음 발견했고, **갈릴리**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이 나 **다마스쿠스**가 아닌 **갈릴리**에서 성장한 것도 알게 됐다.

그들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에게 매료됐음을 알았으므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니드**가 **예수**에게 질문하자, 그의 선생이 말했다: “네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원한다고 네가 확신하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된 **유대인** 속담을 인용했다--“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호적인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

예수는, **카르타고**에서 어느 **미드라고** 사제와 불멸(不滅)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길고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페르시아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에게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이날 그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시간은, 피조물 의식으로 감지되는 일시적 사건들이 흘러가는 흐름이다. 시간은, 사건들이 인식되고 분리되는 연속된 배열에 붙여진 이름이다. 공간의 우주는, **낙원**이라는 고정된 거주지 밖의 어떤 내부 위치든지, 거기서 보이는 시간과 관련된 현상이다. 시간의 움직임은 오직,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과 관련해 시간 현상으로서만 드러난다. 온갖 우주에서, **낙원**과 거기 계시는 **신격**들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다.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에서, (**낙원 아버지**의 영이 거주하고 인도하는) 인간의 인격은, 현세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물질적 순서를 초월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연관된 유일한 실체다.

사람과는 달리, 동물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그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시야 때문에, 시간이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상승함에 따라서, 즉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사건 진행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그 전체 모습이 점점 더 식별된다. 전에는 사건들의 연속체로 나타났던 것이, 다음에는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연관된 순환(循環)으로 보일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한때 일직선으로 연속되는 사건들로 인식했던 것이, 점점 순환적 동시성으로 바뀔 것이다.

시간 제약에 따라서 공간 개념은 일곱 가지로 달라진다. 시간으로 공간을 측정하지만, 시간은 공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공간의 질

130:7.1 (1438.4) Most of the time en route to Carthage Jesus talked with his fellow travelers about things social, political, and commercial; hardly a word was said about religion. For the first time Gonod and Ganid discovered that Jesus was a good storyteller, and they kept him busy telling tales about his early life in Galilee. They also learned that he was reared in Galilee and not in either Jerusalem or Damascus.

130:7.2 (1438.5) When Ganid inquired what one could do to make friends, having noticed that the majority of persons whom they chanced to meet were attracted to Jesus, his teacher said: “Become interested in your fellows; learn how to love them and watch for the opportunity to do something for them which you are sure they want done,” and then he quoted the olden Jewish proverb — “A man who would have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130:7.3 (1439.1) At Carthage Jesus had a long and memorable talk with a Mithraic priest about immortality, about time and eternity. This Persian had been educated at Alexandria, and he really desired to learn from Jesus. Put into the words of today, in substance Jesus said in answer to his many questions:

130:7.4 (1439.2) Time is the stream of flowing temporal events perceived by creature consciousness. Time is a name given to the succession-arrangement whereby events are recognized and segregated. The universe of space is a time-related phenomenon as it is viewed from any interior position outside of the fixed abode of Paradise. The motion of time is only revealed in relation to something which does not move in space as a time phenomenon.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Paradise and its Deities transcend both time and space. On the inhabited worlds, human personality (indwelt and oriented by the Paradise Father’s spirit) is the only physically related reality which can transcend the material sequence of temporal events.

130:7.5 (1439.3) Animals do not sense time as does man, and even to man, because of his sectional and circumscribed view, time appears as a succession of events; but as man ascends, as he progresses inward, the enlarging view of this event procession is such that it is discerned more and more in its wholeness. That which formerly appeared as a succession of events then will be viewed as a whole and perfectly related cycle; in this way will circular simultaneity increasingly displace the onetime consciousness of the linear sequence of events.

130:7.6 (1439.4) There are seven different conceptions of space as it is conditioned by time. Space is measured by time, not time by space. The

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혼란에 빠지게 됐다. 공간은 우주 물체들 사이의 변화되는 관계를 보는 단순한 지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 사람이 아는 한, 부분적으로라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은 공간과 관련된 물체의 개념과 관계없이 작용할 수 있다. 공간은 피조물 상태의 모든 존재에게 상대적이고 비교적 유한하다. 의식이 일곱 가지 시공우주 차원에 대한 자각에 가까워질수록, 잠재적 공간 개념은 더 궁극{窮極}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공간 잠재성은 절대 수준에서만 진정으로 궁극이다.

사람이 상승하고 완전해지는, 시공우주의 여러 수준에서, 우주의 실체는 확장하는 의미를, 그리고 항상 상대적 의미를 가졌음이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일곱 차원의 우주에서 정체성을 성취한다.

물질적으로 기원된 정신의 시_공간 개념은, 의식하고 납득하는 인격체가 우주들의 수준들로 상승함에 따라서, 연속적인 확장을 겪도록 정해져 있다. 사람이 실존에 대한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들 사이에 개재하는 정신에 도달할 때, 시_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들은, 감지{感知}하는 질과 체험하는 양에서 둘 다 거대하게 팽창될 것이다. 진보하는 영 인격체의 확장되는 시공우주 개념은, 의식의 넓이와 통찰력의 깊이, 이 두 가지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격**과 비슷한 초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격이 위로 안쪽으로 계속 나아감에 따라서, 시_공간 개념은 **절대자**들의 무시간 및 무공간 개념에 점점 더 접근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초월적 달성에 따라서,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은 절대 수준의 이 개념들을 선망{羨望}하게 될 것이다.

8. 나폴리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처음 머문 곳은 **말타** 섬이었다. **예수**는 여기서, 기가 죽고 낙심한 **클라우더스**라는 이름의 청년과 길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을 깊이 해왔지만, **다마스쿠스** 서기관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자답게 인생을 대처하겠으며; 비겁자 노릇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곧 **견유학파**의 열렬한 설교자가 됐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손잡고 **로마**와 **나폴리**에서 설교했으며,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스페인**까지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는, **말타**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이, 자신이 후에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그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confusion of the scientist grows out of failure to recognize the reality of space. Space is not merely an intellectual concept of the variation in relatedness of universe objects. Space is not empty, and the only thing man knows which can even partially transcend space is mind. Mind can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concept of the space-relatedness of material objects. Space is relatively and comparatively finite to all beings of creature status. The nearer consciousness approaches the awareness of seven cosmic dimensions, the more does the concept of potential space approach ultimacy. But the space potential is truly ultimate only on the absolute level.

130:7.7 (1439.5) It must be apparent that universal reality has an expanding and always relative meaning on the ascending and perfecting levels of the cosmos. Ultimately, surviving mortals achieve identity in a seven-dimensional universe.

130:7.8 (1439.6) The time-space concept of a mind of material origin is destined to undergo successive enlargements as the conscious and conceiving personality ascends the levels of the universes. When man attains the mind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planes of existence, his ideas of time-space will be enormously expanded both as to quality of perception and quantity of experience. The enlarging cosmic conceptions of an advancing spirit personality are due to augmentations of both depth of insight and scope of consciousness. And as personality passes on, upward and inward, to the transcendental levels of Deity-likeness, the time-space concept will increasingly approximate the timeless and spaceless concepts of the Absolutes. Relatively, and in accordance with transcendental attainment, these concepts of the absolute level are to be envisioned by the children of ultimate destiny.

8. ON THE WAY TO NAPLES AND ROME

130:8.1 (1440.1) The first stop on the way to Italy was at the island of Malta. Here Jesus had a long talk with a downhearted and discouraged young man named Claudus. This fellow had contemplated taking his life, but when he had finished talking with the scribe of Damascus, he said: “I will face life like a man; I am through playing the coward. I will go back to my people and begin all over again.” Shortly he became an enthusiastic preacher of the Cynics, and still later on he joined hands with Peter in proclaiming Christianity in Rome and Naples, and after the death of Peter he went on to Spain preaching the gospel. But he never knew that the man who inspired him in Malta was the Jesus whom he subsequently proclaimed the world’s Deliverer.

그들은 **시라쿠스**에서 한 주간 내내 지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예수**와 동무들이 머문 여인숙 주인이었던, 타락한 **유대인 에스라**의 갱생이었다. **에스라**는 **예수**의 태도에 마음이 끌렸고,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절망 상태를 표현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수**가 말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그 소망은 이미 네가 그를 찾았다는 증거다. 네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찾으셨기 때문이며; 네 문제는 단지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그 선지자가, ‘그리고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가 되고, 너희가 내 민족이 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성서**에, ‘그가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때, 혹시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고 의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흑암으로부터 그 사람의 혼을 구출하고 그는 빛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써어있는 것도 읽지 않았느냐?” **에스라**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의 혼에 만족을 얻었다. 후일에 이 **유대인**은 어느 부자 **그리스인** 개종자와 연합했고, **시라쿠스**에 첫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메시나**에서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과일 행상을 하는 한 어린 소년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예수**는 소년에게서 과일을 산 후에 생명의 빵을 줬다. 어깨에 손을 얹고 친절하게 바라보면서 같이 걸었던 **예수**의 말을 소년은 결코 잊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잘 있어라. 애야. 자라서 어른이 될 때 훌륭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육체를 성장시킨 뒤에는 혼을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소년은 **미드라교** 신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드디어 **나폴리**에 도착했고, 목적지인 **로마**가 멀지 않음을 알았다. **고노드**는 **나폴리**에서 많은 사업 일을 처리했고, **예수**는 통역하는 시간 외에는 **가니드**와 함께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일에 숙달돼갔다. 그들은 도시에 사는 많은 빈곤자를 발견했고 여러 번 구제금을 줬다. 그러나 **예수**가 거리의 한 걸인에게 동전 한 닢을 줬을 뿐, 그에게 잠시 멈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떠나면서 한 말의 의미를, **가니드**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의 의미를 감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말을 낭비하느냐? **아버지**의 영은, 아들신분을 수용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가 의미했던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 정신을 소유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영적 인도에 반응할

130:8.2 (1440.2) At Syracuse they spent a full week. The notable event of their stop here was the rehabilitation of Ezra, the backslidden Jew, who kept the tavern where Jesus and his companions stopped. Ezra was charmed by Jesus' approach and asked him to help him come back to the faith of Israel. He expressed his hopelessness by saying, "I want to be a true son of Abraham, but I cannot find God." Said Jesus: "If you truly want to find God, that desire is in itself evidence that you have already found him. Your trouble is not that you cannot find God, for the Father has already found you; your trouble is simply that you do not know God. Have you not read in the Prophet Jeremiah, 'You sha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hall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And again, does not this same prophet say: 'And I will give you a heart to know me, that I am the Lord, and you shall belong to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And have you not also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it says: 'He looks down upon men, and if any will say: I have sinned and perverted that which was right, and it profited me not, then will God deliver that man's soul from darkness, and he shall see the light'?" And Ezra found God and to the satisfaction of his soul. Later, this Jew, in association with a well-to-do Greek proselyte, built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Syracuse.

130:8.3 (1440.3) At Messina they stopped for only one day, but that was long enough to change the life of a small boy, a fruit vendor, of whom Jesus bought fruit and in turn fed with the bread of life. The lad never forgot the words of Jesus and the kindly look which went with them when, placing his hand on the boy's shoulder, he said: "Farewell, my lad, be of good courage as you grow up to manhood and after you have fed the body learn how also to feed the soul. And my Father in heaven will be with you and go before you." The lad became a devotee of the Mithraic religion and later on turned to the Christian faith.

130:8.4 (1440.4) At last they reached Naples and felt they were not far from their destination, Rome. Gonod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in Naples, and aside from the time Jesus was required as interpreter, he and Ganid spent their leisure visiting and exploring the city. Ganid was becoming adept at sighting those who appeared to be in need. They found much poverty in this city and distributed many alms. But Ganid never understood the meaning of Jesus' words when, after he had given a coin to a street beggar, he refused to pause and speak comfortingly to the man. Said Jesus: "Why waste words upon one who cannot perceive the meaning of what you say? The spirit of the Father cannot teach and save one who has no capacity for sonship." What Jesus meant was that the man was not of normal

역량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었다.

나폴리에서는 별다른 체험을 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젊은이는, 도시 전체를 누비며 수많은 남녀 및 아이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용기를 전파했다.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카푸아**를 거쳐 **로마**로 갔는데, **카푸아**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짐 실은 동물을 이끌고 **아피아의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갔고, 세 사람은, 제국의 주인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로마**를 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mind; that he lacked the ability to respond to spirit leading.

130:8.5 (1441.1) There was no outstanding experience in Naples; Jesus and the young man thoroughly canvassed the city and spread good cheer with many smiles upon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130:8.6 (1441.2) From here they went by way of Capua to Rome, making a stop of three days at Capua. By the Appian Way they journeyed on beside their pack animals toward Rome, all three being anxious to see this mistress of empire and the greatest city in all the world.

제 131편. 세계의 종교

⇨ 130

유랜시아 책

132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31편
세계의 종교

섹션

소개

1. 건유주의
2. 유대교
3. 불교
4. 힌두교
5. 조로아스터교
6. 수두안교(자이나교)
7. 신토
8. 도교
9. 유교
10. “우리 종교”

PAPER 131

THE WORLD'S RELIGIONS

SECTIONS

Introduction

1. Cynicism
2. Judaism
3. Buddhism
4. Hinduism
5. Zoroastrianism
6. Suduanism (Jainism)
7. Shinto
8. Taoism
9. Confucianism
10. “Our Religion”

소개

예수, 고노드, 및 가니드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필사적 사람의 관계에 관한 세계 종교들의 교훈을 수집하느라고, **가니드**는 많은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적지 않게 썼다. **가니드**는 **신격**들에 관한 종교 교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60명 이상의 학식 있는 번역가를 고용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 명백히 밝혀야 할 점은, 일신교(一神敎)를 표방하는 이 모든 교훈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보낸 선교사들의 설교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곧 **지고자**--의 교리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살렘** 본부로부터 파견됐다.

이것은 **가니드**의 문서 중에서 발췌해 제시하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준비했고, 그가 죽은 후 몇 백 년 동안 **인도**에 보존돼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으로 이 자료를 모았다:

INTRODUCTION

131:0.1 (1442.1) DURING the Alexandrian sojourn of Jesus, Gonod, and Ganid, the young man spent much of his time and no small sum of his father's money making a collection of the teachings of the world's religions about God and his relations with mortal man. Ganid employed more than threescore learned translators in the making of this abstract of the religious doctrines of the world concerning the Deities. And it should be made plain in this record that all these teachings portraying monotheism were largely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preachments of the missionaries of Machiventa Melchizedek, who went forth from their Salem headquart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one God — the Most High — to the ends of the earth.

131:0.2 (1442.2) There is presented herewith an abstract of Ganid's manuscript, which he prepared at Alexandria and Rome, and which was preserved in India for hundreds of years after his death. He collected this material under ten heads,

as follows:

1. 견유주의

멜기세덱 제자들이 전한 교훈의 잔재는, **유대인** 종교에 존속된 것을 제외하고, **견유학파**(犬儒學派)의 교리에 가장 잘 보존돼 있었다. **가니드**가 수집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됐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그는 하늘과 땅의 **지고자**시다. **하나님**은 완성된 영원성 궤도이며, 온갖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는 하늘들과 땅의 유일한 조물주(造物主)시다. 그가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것이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며, 인정 많고 자비로우시다. 높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 **지고자**는 하늘과 땅의 빛이시며; 동서남북에 두루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이 없어지더라도, **지존자**의 빛나는 얼굴은 위엄과 영광 속에 거하신다. **지고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시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 계시고, 그의 이름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그에게는 분노와 적의가 없으며; 그는 불멸하고 무한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관대하시다. 그는 여러 가지로 현시(顯示)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경배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곧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맹세를—아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의 능력은 만물에게 공평하다.

“**하나님**은 평화를 수여하는 분이며,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보호자시다. 그는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창조물은 **지고자**의 능력 안에 존재한다. 그의 신성한 사랑은 그의 거룩한 권능에서 솟아나며, 애정은 그의 위대한 능력에서 발생한다. **지고자**는 육체와 혼이 합동하도록 명했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여하셨다. 사람이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창조주**가 하시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는 사람의 체험에서 지식을 얻는 반면, **지고자**를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고, 싹트는 곡물에 태양을 비추며, 이 생애와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권위를 누리시며; 그의 이름은 **탁월**이고, 그의 본성은 헤아릴 수 없다. 너희가 아플 때 치유하시는 이는 **지고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선을 가득 품으시며; 우리에게 **지고자** 같은 친구는 없다. 그의 자비는 모든 곳을 채우고, 그의 선하심은 모든 혼을 감싸신다. **지고자**는 변치 않으며; 필요할 때 우리를 항상 돕는 분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고자**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1. CYNICISM

131:1.1 (1442.3) The residual teachings of the disciples of Melchizedek, excepting those which persisted in the Jewish religion, were best preserved in the doctrines of the Cynics. Ganid's selection embraced the following:

131:1.2 (1442.4) “God is supreme; he is the Most High of heaven and earth. God is the perfected circle of eternity, and he rules the universe of universes. He is the sole make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he decrees a thing, that thing is. Our God is one God, and he is compassionate and merciful. Everything that is high, holy, true, and beautiful is like our God. The Most High is the light of heaven and earth; he is the God of the east, the west, the north, and the south.

131:1.3 (1442.5) “Even if the earth should pass away, the resplendent face of the Supreme would abide in majesty and glory. The Most High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everything. There is but this one God, and his name is Truth. God is self-existent, and he is devoid of all anger and enmity; he is immortal and infinite. Our God is omnipotent and bounteous. While he has many manifestations, we worship only God himself. God knows all — our secrets and our proclamations; he also knows what each of us deserves. His might is equal to all things.

131:1.4 (1442.6) “God is a peace giver and a faithful protector of all who fear and trust him. He gives salvation to all who serve him. All creation exists in the power of the Most High. His divine love springs forth from the holiness of his power, and affection is born of the might of his greatness. The Most High has decreed the union of body and soul and has endowed man with his own spirit. What man does must come to an end, but what the Creator does goes on forever. We gain knowledge from the experience of man, but we derive wisdom from the contemplation of the Most High.

131:1.5 (1443.1) “God pours rain upon the earth, he causes the sun to shine upon the sprouting grain, and he gives us the abundant harvest of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and eternal salvation in the world to come. Our God enjoys great authority; his name is Excellent and his nature is unfathomable. When you are sick, it is the Most High who heals you. God is full of goodness toward all men; we have no friend like the Most High. His mercy fills all places and his goodness encompasses all souls. The Most High is changeless; and he is our helper in every time of need. Wherever you turn to pray, there is the face of the Most High and the open ear of our God. You may hide yourself from men, but not from God. God is not a great distance from us;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며;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신다. 창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고, **창조주**는 창조물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고자**를 찾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소중한 친구를 찾으려 하다가, 네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저희는 형제다. 육신 속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 대가{代價}로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삶 속에서, 생생한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실책을 멀리하고 악을 극복하라.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시며;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형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악을,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그의 이름을 믿는 대로, 네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지고자**를 경배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온 세상과 우주들이 **지고자**를 경배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려라--경배의 경지로 상승하라. 기도로 드리는 경배는 악을 피하고 죄를 막는다. **지고자**의 이름을 항상 칭송하자. **지고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우주에게 숨길 수 있다.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는 어떤 창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지고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시며, 이 세상에 있는 자녀인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 손을 잡고 그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이름을 섬기라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지고자에 대한 신앙이 네 마음에 들어오면, 너는 인생의 모든 나날을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번영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악을 꾸미는 자들을 두려워 말며; 혼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방황하는 필사자의 지친 혼은 **지고자** 품안에서 영원한 쉼을 발견하며; 현명한 사람은 신성한 포옹을 그리워하고; 세상 자녀는 **만유의 아버지** 팔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고대한다. 고상한 사람은, 필사자의 혼이 **지존자**의 영광 조화되는 높은 상태를 추구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고 얻지 못한 결실을 다음 세상에서 받게 하신다.”

he is omnipresent. God fills all places and lives in the heart of the man who fears his holy name. Creation is in the Creator and the Creator in his creation. We search for the Most High and then find him in our hearts. You go in quest of a dear friend, and then you discover him within your soul.

131:1.6 (1443.2) “The man who knows God looks upon all men as equal; they are his brethren. Those who are selfish, those who ignore their brothers in the flesh, have only weariness as their reward. Those who love their fellows and who have pure hearts shall see God. God never forgets sincerity. He will guide the honest of heart into the truth, for God is truth.

131:1.7 (1443.3) “In your lives overthrow error and overcome evil by the love of the living truth. In all your relations with men do good for evil. The Lord God is merciful and loving; he is forgiving. Let us love God, for he first loved us. By God’s love and through his mercy we shall be saved. Poor men and rich men are brothers. God is their Father. The evil you would not have done you, do not to others.

131:1.8 (1443.4) “At all times call upon his name, and as you believe in his name, so shall your prayer be heard. What a great honor it is to worship the Most High! All the worlds and the universes worship the Most High. And with all your prayers give thanks — ascend to worship. Prayerful worship shuns evil and forbids sin. At all times let us praise the name of the Most High. The man who takes shelter in the Most High conceals his defects from the universe. When you stand before God with a clean heart, you become fearless of all creation. The Most High is like a loving father and mother; he really loves us, his children on earth. Our God will forgive us and guide our footsteps into the ways of salvation. He will take us by the hand and lead us to himself. God saves those who trust him; he does not compel man to serve his name.

131:1.9 (1443.5) “If the faith of the Most High has entered your heart, then shall you abide free from fear throughout all the days of your life. Fret not yourself because of the prosperity of the ungodly; fear not those who plot evil; let the soul turn away from sin and put your whole trust in the God of salvation. The weary soul of the wandering mortal finds eternal rest in the arms of the Most High; the wise man hungers for the divine embrace; the earth child longs for the security of the arm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noble man seeks for that high estate wherein the soul of the mortal blends with the spirit of the Supreme. God is just: What fruit we receive not from our plantings in this world we shall receive in the next.”

2. 유대교

팔레스틴의 **켄족**속은 **멜기세덱**의 가르침 대부분을 건져냈으며, 이 기록에서 **예수**와 **가니드**는 **유대인**이 보존하고 변경한 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거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만물은 매우 좋았다. **주**가 **하나님**이시며;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위에, 그분 없이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땅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보여준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씀이나 언어가 없다. **주**의 일은 위대하고, 그는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으며; **주**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아시며;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신다.

“**주**의 능력은 위대하고 그의 이해는 무한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방법이 너희 방법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하나님**은, 빛이 그 안에 거하므로, 깊고 비밀스런 것을 드러내신다. **주**는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시며;오래 참고 선함과 진실이 풍성하시다. **주**는 선하고 정의로우시며;온유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속에 함께 거하시는 도움이시다.

“**주**의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자 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하며, 그의 의는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주**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풍성하시다. **주**는 모두에게 선하고, 그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덮으시며;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신성한 현존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영원히 거하는 **높고 존귀하신 이**가 말씀하셨다:‘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또한 회개한 마음과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아무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못하니, 그가 하늘과 땅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하늘들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모든 나라가 외치게 하라:**주**께서 다스리신다!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늘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을 봤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우리는 그의 민족이고 그의 초장{草場}에 있는 양이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고 그의 진실은 모든 세대마다 계속된다.

2. JUDAISM

131:2.1 (1444.1) The Kenites of Palestine salvaged much of the teaching of Melchizedek, and from these records, as preserved and modified by the Jews, Jesus and Ganid made the following selection:

131:2.2 (1444.2)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And, behold, all he created was very good. The Lord, he is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in heaven above or upon the earth beneath. Therefore shall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s his handiwork. Day after day utters speech; night after night shows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The Lord’s work is great, and in wisdom has he made all things; the greatness of the Lord is unsearchable. He know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131:2.3 (1444.3) “The power of the Lord is great and his understanding infinite. Says the Lor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higher than your thoughts.’ God reveals the deep and secret things because the light dwells with him.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he i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The Lord is good and upright; the meek will he guide in judgment.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God.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131:2.4 (1444.4) “The mercy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upon those who fear him and his righteousness even to our children’s children. The Lord is gracious and full of compassion. The Lord is good to all, and his tender mercies are over all his creation;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Whither shall I go from God’s spirit? whither shall I flee from the divine presence? Thus says the High and Lofty One who inhabits eternity, whose name is Holy: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 also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heart and a humble spirit!’ None can hide himself from our God, for he fills heaven and earth. Let the heavens be glad and let the earth rejoice. Let all nations say: The Lord reigns! Give thanks to G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131:2.5 (1444.5) “The heavens declare God’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 have seen his glory. It is God who has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Our God is governor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워라!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의 놀라운 선물로 인해 **주**를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신성한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셨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가 아시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지존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잊지 말라.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얻는 자보다 강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영적 휴식을 향해 돌아설 때 구원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할 때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쉼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낙담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너를 도와주리니; 정녕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주**는 우리 구세주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무리를 지으시고, 그들 모두를 보존하신다. 그의 의는 산 같고, 그의 판단은 깊은 바다 같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의 빛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주**께 감사함과 **지고자**를 찬송함; 아침에 사랑스런 친절을, 그리고 저녁마다 신성한 신실(信實)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주**는 내 목자시며;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가, 내가 죽는 날까지 정녕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것이다.

“**야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 신성한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의뢰하며; 나 자신의 명철(明哲)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것이며,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는 신실하시며;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며; 의인은 자신의 신앙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편치 않다면 문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 악을 밟고 죄를 뿌린 자들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네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네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며;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네 자신의 혼에게도 해를 끼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실 것이다. 사람은,

among the nations. Let th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O that men would praise the Lord for his goodness and for his wonderful gifts to the children of men!

131:2.6 (1444.6) “God has made man a little less than divine and has crowned him with love and mercy.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knowledge of the Supreme is understanding. Says the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Forget not that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He who rules his own spirit is mightier than he who takes a city. Says the Lord God, the Holy One: ‘In returning to your spiritual rest shall you be saved; in quietness and confidence shall be your strength.’ They who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be faint. The Lord shall give you rest from your fear. Says the Lord: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yes, I will uphold you with the right hand of my righteousness.’

131:2.7 (1445.1) “God is our Father; the Lord is our redeemer. God has created the universal hosts, and he preserves them all. His righteousness is like the mountains and his judgment like the great deep. He causes us to drink of the river of his pleasures, and in his light we shall see light.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s to the Most High; to show forth loving-kindness in the morning and the divine faithfulness every night. God’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his dominion endures throughout all generation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Ye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God is with me.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131:2.8 (1445.2) “Yahweh is the God of my salvation; therefore in the divine name will I put my trust. I will trust in the Lord with all my heart; I will lean not upon my own understanding. In all my ways I will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my paths. The Lord is faithful; he keeps his word with those who serve him;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If you do not well, it is because sin lies at the door; men reap the evil they plough and the sin they sow. Fret not yourself because of evildoers. If you regard iniquity in your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you; if you sin against God, you also wrong your own soul. God will bring every man’s work 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evil. As a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주**께서는 성실과 진리 안에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울음이 밤 동안 계속 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죄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며;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은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죄다. **하나님**은 내 안색(顔色)의 치유자시고, 내 혼의 기쁨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힘이시며; 우리 처소가 되시고, 그 아래에는 영원하신 팔이 있다. **주**는 상한심령에게 가까우시며;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진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 네 길을 **주**께 맡기면--곧 그를 신뢰하면-- 그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며;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하지 마라. **주**께서, ‘나는 내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의인의 길은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빛나는 밝은 빛 같을 것이다. 지혜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반역하는 생각들을 버려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널리 용서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소유한다. 내 계명은 이렇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무덤에서 살려낼 것이며; 너

131:2.9 (1445.3) “The Lord is near all who call upon him in sincerity and in truth.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A merry heart does good like a medicine. No good thing will God withhold from those who walk uprightly.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Thus says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who formed the earth: ‘There is no God beside me, a just God and a savior. Look to me and b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If you seek me, you shall find me if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The meek shall inherit the earth and shall delight themselves in the abundance of peace. Whoever sows iniquity shall reap calamity; they who sow the wind shall reap the whirlwind.

131:2.10 (1445.4)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But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it is your own sins which have withheld the good things from you. God is the health of my countenance and the joy of my soul. The eternal God is my strength; he is our dwelling plac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The Lord is near to those who are brokenhearted; he saves all who have a childlike spirit.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man, but the Lord delivers him out of them all. Commit your way to the Lord — trust him — and he will bring it to pass.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131:2.11 (1445.5)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bear a grudge against no man. Whatsoever you hate do to no man. Love your brother, for the Lord has said: ‘I will love my children freely.’ The path of the just is as a shining light which shines more and more until the perfect day. They who are wise shall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ey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as the stars forever and ever. Let the wicked forsake his evil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rebellious thoughts. Says the Lord: ‘Le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have mercy on them; I will abundantly pardon.’

131:2.12 (1446.1) “Says Go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Great peace have they who love my law. My commandments are: You shall love me with all your heart; you shall have no gods before me; you shall not take my name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you shall not kill;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you shall not covet.’

131:2.13 (1446.1) “And to all who love the Lord supremely and their neighbors like themselves, the God of heaven says: ‘I will ransom you from the

를 죽음에서 구속할 것이다. 나는 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또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내 피조물에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처럼 되어 **낙원**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3. 불교

가니드는, **불교**가 **하나님** 없이도, 개인적이거나 보편적인 **신격** 없이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교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지 그는, **인도**에서 **부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교훈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초기 **신조**(信條)의 기록을 찾아냈다. **예수**와 **가니드**는 **불교**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서 **무한자**에 이를 것이며; 내 존재 전체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으로 평화로울 것이다. 내 혼은 만족으로 가득하고, 내 가슴은 평화스런 신뢰의 희열로 넘친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안전함에 거하고, 내 적들은 나를 놀라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확신의 열매로 만족한다. 나는 **불멸자**(不滅者)에게 쉽게 접근하는 길을 발견했다. 나는 오랜 여정에서 나를 붙들어 줄 신앙을 위해서 간구하며; 저편에서 온 신앙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는 내 형제들이 **불멸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번창하게 되리라는 것과, 심지어 겸양과 정직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과 인내심을 주는 신앙으로 자라갈 것임을 안다. 슬픔을 내버리고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자. 신앙으로 진정한 의와 순수한 인간다움을 간직하자. 공의와 자비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자. 신앙은 사람의 진정한 재산이며; 덕행과 영광의 기증품이다.

“불의는 비천하며; 죄는 비열하다. 악은, 생각 속에 있든지 행동으로 옮겨졌든지, 품위를 떨어뜨린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듯이, 악한 길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 물질로 이뤄진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순수한 생각과 덕 있는 생활에는 행복과 평화가 뒤따른다. 악(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생각의 열매다. 죄 없는 데서 죄를 보거나; 죄 있는 데서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악은 거짓된 교리의 통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악을 피하는 자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죄를 혐오함으로 너희의 불행을 끝내라. 너희가 **고귀하신 이**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라. 악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며;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과거의 죄를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서, 너희는 다가올 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한다. 절제는 참회에서 나온다. **고귀하신 이**에게, 잘못을 남기지 말고 고백하라.

grave; I will redeem you from death. I will be merciful to your children, as well as just. Have I not said of my creatures on earth, you are the sons of the living God? And have I not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Have I not called you to become like me and to dwell forever with me in Paradise?”

3. BUDDHISM

131:3.1 (1446.3) Ganid was shocked to discover how near Buddhism came to being a great and beautiful religion without God, without a personal and universal Deity. However, he did find some record of certain earlier beliefs which reflected something of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who continued their work in India even to the times of Buddha. Jesus and Ganid collected the following statements from the Buddhist literature:

131:3.2 (1446.4) “Out of a pure heart shall gladness spring forth to the Infinite; all my being shall be at peace with this supermortal rejoicing. My soul is filled with content, and my heart overflows with the bliss of peaceful trust. I have no fear; I am free from anxiety. I dwell in security, and my enemies cannot alarm me. I am satisfied with the fruits of my confidence. I have found the approach to the Immortal easy of access. I pray for faith to sustain me on the long journey; I know that faith from beyond will not fail me. I know my brethren will prosper if they become imbued with the faith of the Immortal, even the faith that creates modesty, uprightness, wisdom, courage, knowledge, and perseverance. Let us forsake sorrow and disown fear. By faith let us lay hold upon true righteousness and genuine manliness. Let us learn to meditate on justice and mercy. Faith is man's true wealth; it is the endowment of virtue and glory.

131:3.3 (1446.5) “Unrighteousness is contemptible; sin is despicable. Evil is degrading, whether held in thought or wrought out in deeds. Pain and sorrow follow in the path of evil as the dust follows the wind. Happiness and peace of mind follow pure thinking and virtuous living as the shadow follows the substance of material things. Evil is the fruit of wrongly directed thinking. It is evil to see sin where there is no sin; to see no sin where there is sin. Evil is the path of false doctrines. Those who avoid evil by seeing things as they are gain joy by thus embracing the truth. Make an end of your misery by loathing sin. When you look up to the Noble One, turn away from sin with a whole heart. Make no apology for evil; make no excuse for sin. By your efforts to make amends for past sins you acquire strength to resist future tendencies thereto. Restraint is born of repentance. Leave no fault unconfessed to the Noble One.

“유쾌함과 기쁨은 바르게 행한 행위들의 보상이며 불멸자의 영광에 이른다. 아무도 너희 정신의 자유를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네 종교를 믿는 신앙이 네 마음을 해방시키게 되면, 정신이 산처럼 안정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혼의 평화가 강물처럼 고요히 흐를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탐심, 시기심, 증오심, 그리고 재산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다. 신앙이 더 나은 삶의 에너지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인내심을 갖고 너 자신의 구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너의 최종 구원을 확실히 하자 한다면, 네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속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확신을 키우고,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의 황홀함을 즐겨라.

“어떤 종교인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허약하고 빈둥거리고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한, 불멸하는 지혜를 깨닫는 데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사려 깊고 신중하고 반성하며 열렬하고 진지한 사람은, --그가 아직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이라도-- 신성한 지혜에서 나오는 평화와 자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달성할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행동은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은 슬픔을 가져오고, 죄는 고통으로 끝난다. 기쁨과 행복은 선한 생활의 결과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의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즐거운 시절을 지낼 수 있지만, 악행에 대한 충분한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누구든지 마음 속에 ‘잘못된 행동의 벌이 내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지혜의 심판이 있을 때, 네가 행한 것을 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동료들에게 행한 불의는 네게 돌아올 것이다. 피조물은 자기 행위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 속으로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지만, 안전함은 오직 혼이 책망을 갈망하고 정신이 지혜를 구할 때에만 발견된다. 지혜자란, 원수들 가운데서 친절하고, 난리 중에도 평온하며, 차지하려는 가운데서 관대한, 고귀한 혼을 말한다. 자기를 사랑함은 아름다운 들판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 이기심은 슬픔으로 인도하며, 끊임없는 걱정은 죽음을 부른다. 유순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자신을 극복하고 복종시킨 자는 가장 위대한 전사(戰士)다. 매사에 자제함이 좋다. 덕을 쌓고 자기 의무에 충실한 자만이 위대하다. 분노나 미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만족이 최고 재산이다. 지혜롭게 주어진 것은 잘 간직된다. 자신에게 내키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악에게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온 땅을 다스리는 것보다 의로운 혼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불멸성은 성실함의 목표이며; 죽음은 지각없는 삶의 종말이다. 진지한 자는 죽지 않으며; 지각없는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죽음 없는 상태에 대해 관심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체를 괴롭히는 자는 죽음 후에도 행복을 거의

131:3.4 (1447.1) “Cheerfulness and gladness are the rewards of deeds well done and to the glory of the Immortal. No man can rob you of the liberty of your own mind. When the faith of your religion has emancipated your heart, when the mind, like a mountain, is settled and immovable, then shall the peace of the soul flow tranquilly like a river of waters. Those who are sure of salvation are forever free from lust, envy, hatred, and the delusions of wealth. While faith is the energy of the better life, nevertheless, must you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perseverance. If you would be certain of your final salvation, then make sure that you sincerely seek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Cultivate the assurance of the heart which springs from within and thus come to enjoy the ecstasy of eternal salvation.

131:3.5 (1447.2) “No religionist may hope to attain the enlightenment of immortal wisdom who persists in being slothful, indolent, feeble, idle, shameless, and selfish. But whoso is thoughtful, prudent, reflective, fervent, and earnest — even while he yet lives on earth — may attain the supreme enlightenment of the peace and liberty of divine wisdom. Remember, every act shall receive its reward. Evil results in sorrow and sin ends in pain. Joy and happiness are the outcome of a good life. Even the evildoer enjoys a season of grace before the time of the full ripening of his evil deeds, but inevitably there must come the full harvest of evil-doing. Let no man think lightly of sin, saying in his heart: ‘The penalty of wrongdoing shall not come near me.’ What you do shall be done to you, in the judgment of wisdom. Injustice done to your fellows shall come back upon you. The creature cannot escape the destiny of his deeds.

131:3.6 (1447.3)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Evil shall not overtake me’; but safety is found only when the soul craves reproof and the mind seeks wisdom. The wise man is a noble soul who is friendly in the midst of his enemies, tranquil among the turbulent, and generous among the grasping. Love of self is like weeds in a goodly field. Selfishness leads to grief; perpetual care kills. The tamed mind yields happiness. He is the greatest of warriors who overcomes and subdues himself. Restraint in all things is good. He alone is a superior person who esteems virtue and is observant of his duty. Let not anger and hate master you. Speak harshly of no one. Contentment is the greatest wealth. What is given wisely is well saved. Do not to others those things you would not wish done to you. Pay good for evil; overcome evil with the good.

131:3.7 (1447.4) “A righteous soul is more to be desired than the sovereignty of all the earth. Immortality is the goal of sincerity; death, the end of thoughtless living. Those who are earnest die not; the thoughtless are dead already. Blessed are they who have insight into the deathless state.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며, 그들은 거기서 무한한 자유의 복락을 누리고, 고귀한 관용(寬容)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말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는 모든 필사자는, 짧은 이 생애 동안에 여기서 덕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몸이 죽은 뒤에도 하늘의 복락을 계속 누릴 것이다.”

Those who torture the living will hardly find happiness after death. The unselfish go to heaven, where they rejoice in the bliss of infinite liberality and continue to increase in noble generosity. Every mortal who thinks righteously, speaks nobly, and acts unselfishly shall not only enjoy virtue here during this brief life but shall also,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body, continue to enjoy the delights of heaven.”

4. 힌두교

멜기세덱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전파했다. 이 일신교(一神敎) 교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전에 있던 다른 개념들과 함께, **힌두교**의 후대 교훈에 포함되게 됐다.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지존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물을 포용(包容)하는 **주**시다. 그는 온갖 우주의 창조자이고 통제관이시다.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며;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이 한분 **하나님**이 우리 **조물주**시고 혼의 최종 운명이다. **지존하신 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시며; **빛 중의 빛**이시다. 이 신성한 빛이 모든 마음과 모든 세계를 비춘다.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시며--곧 피조물의 곁에 계시며, 그를 알게 되는 자들은 불멸하게 된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큰 근원이며; **위대한 혼**이시다. 그는 우주의 지배권을 만유 위에 펼치신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며 경배받을 만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권능을 가졌고, 가장 높은 거주지에 거하신다. 진정한 이 **인격자**는 영원하고 신성하며; 하늘의 원조 **주**시다. 모든 선지자가 그를 환호했고,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오, **지존하신 인격자**, 존재들의 근원, 창조물의 **주**, 우주의 통치자여, 당신이 내재하여 거하시는 그 능력을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고; 밝고 순수하며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의 영원한 지식은 신성하게 현명하다. **영원자**에게는 악이 스며들지 못한다. 우주가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으므로, 그가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신다. 그는 창조의 원인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형성됐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모든 선한 사람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며; **불멸하는 분**이 모든 인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하고, 그의 친절은 관대하다. 그는 사랑하는 보호자, 행복한 옹호자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 자신의 혼 속에 지혜의 등불로서 머문다. 나는 빛나는 광채이고 선한 자들의 선함이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현존을 피할 수 없다. **주**는 모든 필사자의 눈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도 세시며; 우리는 이 신성한 **존재**를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무로서 경배한다. 그는 모든 것에

4. HINDUISM

131:4.1 (1447.5) The missionaries of Melchizedek carried the teachings of the one God with them wherever they journeyed. Much of this monotheistic doctrine, together with other and previous concepts, became embodied in the subsequent teachings of Hinduism. Jesus and Ganid made the following excerpts:

131:4.2 (1448.1) “He is the great God, in every way supreme. He is the Lord who encompasses all things. He is the creator and control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God is one God; he is alone and by himself; he is the only one. And this one God is our Maker and the last destiny of the soul. The Supreme One is brilliant beyond description; he is the Light of Lights. Every heart and every world is illuminated by this divine light. God is our protector — he stands by the side of his creatures — and those who learn to know him become immortal. God is the great source of energy; he is the Great Soul. He exercises universal lordship over all. This one God is loving, glorious, and adorable. Our God is supreme in power and abides in the supreme abode. This true Person is eternal and divine; he is the primal Lord of heaven. All the prophets have hailed him, and he has revealed himself to us. We worship him. O Supreme Person, source of beings, Lord of creation, and ruler of the universe, reveal to us, your creatures, the power whereby you abide immanent! God has made the sun and the stars; he is bright, pure, and self-existent. His eternal knowledge is divinely wise. The Eternal is unpenetrated by evil. Inasmuch as the universe sprang from God, he does rule it appropriately. He is the cause of creation, and hence are all things established in him.

131:4.3 (1448.2) “God is the sure refuge of every good man when in need; the Immortal One cares for all mankind. God’s salvation is strong and his kindness is gracious. He is a loving protector, a blessed defender. Says the Lord: ‘I dwell within their own souls as a lamp of wisdom. I am the splendor of the splendid and the goodness of the good. Where two or three gather together, there am I also.’ The creature cannot escape the presence of the Creator. The Lord even counts the ceaseless winking of every mortal’s eyes; and

세력을 미치고, 관대하고, 편재하고, 무한히 친절하다. **주는** 우리 통치자, 피난처, 지존하신 통제관이며, 그의 태고{太古}의 영이 필사자 혼 안에 거하신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한다. 경배할만하고 신성한 **생명 증거자**를 깊이 명상하며; 그의 영이 우리 생각을 충분히 다스리게 하라. 이 비현실의 세계로부터 실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죽음에서 불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모든 미움을 지우고, **영원자**를 경배하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주시며;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신다. **단호한 자**인 그에게 모든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라. 기도의 **주**의 너그러움을 기뻐하자. 너희 마음 속 깊은 곳의 친구에게 기도하고, 너희 혼의 지지자를 경배하라. **영원자**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게 도달하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데, 나를 경배함이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된 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분이고 연약한 자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친구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가 사람의 신실하고 영원한 돕는 자이므로,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지도자이고 실수 없는 안내자시다. 그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부모고, 무한한 에너지와 무제한 지혜를 소유하셨다. 그의 광채는 장엄하며, 그의 아름다움은 신성하다. 그는 우주의 최고 위로자이고 영원한 법을 변함없이 수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고 모든 사람의 안위자시며; 인류를 사랑하고, 꺾박받는 자들을 돕는 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인간 무리의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형제, 그리고 친구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 존재 속에서 알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얻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역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지존자** 안에서 평화를 체험했다. 신앙으로 충만한 자는, 그의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진정으로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외투 삼으시고; 또한 여섯 개의 넓게 펼쳐진 다른 우주에 거하신다. 그는 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 속에 지존하시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 대한 모든 과오로 인해 **주**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모든 악을 싫어하니; 오 **주**여, 죄의 모든 흔적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는, 위로자, 보호자,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기도한다.

“**우주 보호자**의 영이 단순한 피조물의 혼 속으로 들어간다.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현명하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으로 **주 지존자**를 알아야 한다. **지존자**의 더없이 행복한 안전함을 아는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존자**가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

we worship this divine Being as our inseparable companion. He is all-prevailing, bountiful, omnipresent, and infinitely kind. The Lord is our ruler, shelter, and supreme controller, and his primeval spirit dwells within the mortal soul. The Eternal Witness to vice and virtue dwells within man's heart. Let us long meditate on the adorable and divine Vivifier; let his spirit fully direct our thoughts. From this unreal world lead us to the real! From darkness lead us to the light! From death guide us to immortality!

131:4.4 (1448.3) “With our hearts purged of all hate, let us worship the Eternal. Our God is the Lord of prayer; he hears the cry of his children. Let all men submit their wills to him, the Resolute. Let us delight in the liberality of the Lord of prayer. Make prayer your inmost friend and worship your soul's support. ‘If you will but worship me in love,’ says the Eternal, ‘I will give you the wisdom to attain me, for my worship is the virtue common to all creatures.’ God is the illuminator of the gloomy and the power of those who are faint. Since God is our strong friend, we have no more fear. We praise the name of the never-conquered Conqueror. We worship him because he is man's faithful and eternal helper. God is our sure leader and unfailing guide. He is the great parent of heaven and earth, possessed of unlimited energy and infinite wisdom. His splendor is sublime and his beauty divine. He is the supreme refuge of the universe and the changeless guardian of everlasting law. Our God is the Lord of life and the Comforter of all men; he is the lover of mankind and the helper of those who are distressed. He is our life giver and the Good Shepherd of the human flocks. God is our father, brother, and friend. And we long to know this God in our inner being.

131:4.5 (1448.4) “We have learned to win faith by the yearning of our hearts. We have attained wisdom by the restraint of our senses, and by wisdom we have experienced peace in the Supreme. He who is full of faith worships truly when his inner self is intent upon God. Our God wears the heavens as a mantle; he also inhabits the other six wide-spreading universes. He is supreme over all and in all. We crave forgiveness from the Lord for all of our trespasses against our fellows; and we would release our friend from the wrong he has done us. Our spirit loathes all evil; therefore, O Lord, free us from all taint of sin. We pray to God as a comforter, protector, and savior — one who loves us.

131:4.6 (1449.1) “The spirit of the Universe Keeper enters the soul of the simple creature. That man is wise who worships the One God. Those who strive for perfection must indeed know the Lord Supreme. He never fears who knows the blissful security of the Supreme, for the Supreme says to those who serve him, ‘Fear not, for I am with you.’

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피조물이 그를 이해하는 것이--곧 진리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다. 진리는 영원하며;우주를 지탱한다. 우리의 최고 열망은 **지존자**와 합일될 것이다. **위대한 조정자**가 모든 것을 발생시킨다--모두 그로부터 진화한다. 그리고 전체 의무는 이렇다:아무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시키지 말며;원한을 품지 말고, 너희를 때린 자를 때리지 말며, 자비로 분노를 정복하고, 은혜로 증오를 극복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친절한 친구시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위법을 용서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땅은 우리 어머니이며, 우주는 우리의 출생지다. **하나님** 없는 혼은 죄인이며;**하나님**을 앎으로써 혼이 풀려난다. **하나님**을 명상함으로, 그와 합동함으로, 악의 환상들로부터의 구출 그리고 모든 물질 족쇄로부터 궁극에 해방된다. 사람이 공간을 한 조각 가죽처럼 말게 되면 악의 종말이 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세 가지 화근(禍根)에서--곧 탐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소서. 오, 혼이여, 영의 불멸을 위한 투쟁에 대비하라! 필사자 생애의 종말이 다가올 때, 더 알맞고 아름다운 형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불멸하며 지존하신 이**의 영역, 즉 공포, 슬픔, 배고픔, 목마름, 및 죽음이 없는 그 속에서 깨나기 위해 주저 말고 이 육신을 버려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음의 끈을 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혼은, 우유 표면에 크림이 떠오르듯, 우주에서 떠오른다. 우리는 피조물의 마음에 항상 좌정하는, 막강한 작업가이며 **위대한 혼**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좌정하심을 아는 그들은 그분처럼 될 운명이다--불멸한다. 악은 반드시 이 세상에 남지만, 덕은 혼을 따라서 하늘로 간다.

“오직 사악한 자만이 이렇게 말한다:‘우주에는 진리가 없고 어떤 통치자도 없으며;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고안됐을 뿐이다.’ 그런 혼들은 그의 지능이 편협 됨으로 인해 미혹됐다. 그들은 탐욕을 즐기기에 그렇게 자신을 던지고, 자신의 혼으로부터 덕의 기쁨과 정의의 즐거움을 뺏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있을 수 있느냐? **지존자**를 만난 사람은 불멸한다. 육체에 속한 사람의 친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며;사람이 **낙원**의 화창하고 빛나는 들판을 향해서 앞으로 여행할 때, 선행만이 그 사람 걸을 따라간다.”

5.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 자신은 초기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후손과 직접 접촉했고, 한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그가 **페르시아**에 세운 종교의 중심 교훈이 됐다. **유대교**를 제외하고, 당시에 **조로아**

The God of providence is our Father. God is truth. And it is the desire of God that his creatures should understand him — come fully to know the truth. Truth is eternal; it sustains the universe. Our supreme desire shall be union with the Supreme. The Great Controller is the generator of all things — all evolves from him. And this is the sum of duty: Let no man do to another what would be repugnant to himself; cherish no malice, smite not him who smites you, conquer anger with mercy, and vanquish hate by benevolence. And all this we should do because God is a kind friend and a gracious father who remits all our earthly offenses.

131:4.7 (1449.2) “God is our Father, the earth our mother, and the universe our birthplace. Without God the soul is a prisoner; to know God releases the soul. By meditation on God, by union with him, there comes deliverance from the illusions of evil and ultimate salvation from all material fetters. When man shall roll up space as a piece of leather, then will come the end of evil because man has found God. O God, save us from the threefold ruin of hell — lust, wrath, and avarice! O soul, gird yourself for the spirit struggle of immortality! When the end of mortal life comes, hesitate not to forsake this body for a more fit and beautiful form and to awake in the realms of the Supreme and Immortal, where there is no fear, sorrow, hunger, thirst, or death. To know God is to cut the cords of death. The God-knowing soul rises in the universe like the cream appears on top of the milk. We worship God, the all-worker, the Great Soul, who is ever seated in the heart of his creatures. And they who know that God is enthroned in the human heart are destined to become like him — immortal. Evil must be left behind in this world, but virtue follows the soul to heaven.

131:4.8 (1449.3) “It is only the wicked who say: The universe has neither truth nor a ruler; it was only designed for our lusts. Such souls are deluded by the smallness of their intellects. They thus abandon themselves to the enjoyment of their lusts and deprive their souls of the joys of virtue and the pleasures of righteousness. What can be greater than to experience salvation from sin? The man who has seen the Supreme is immortal. Man's friends of the flesh cannot survive death; virtue alone walks by man's side as he journeys ever onward toward the gladsome and sunlit fields of Paradise.”

5. ZOROASTRIANISM

131:5.1 (1449.4) Zoroaster was himself directly in contact with the descendants of the earlier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their doctrine of the one God became a central teaching in the religion

스터교보다 이 **살렘** 교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교는 없었다. 이 종교 문헌들로부터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췌했다:

“모든 것이 --온전히--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께 속해 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은 모든 광영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주**이고, 모든 선한 목적의 **하나님**이며, 우주의 정의를 수호하는 분이다. 현명한 삶을 사는 길은, 진리의 영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사악한 자의 악행과 의로운 자의 선행을 둘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변쩍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 그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이다. **주**는 전능한 후원자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둘 다에게 펼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셨고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정하셨다.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경건한 혼에게 불멸을 약속하신다. 너희가 최고로 바라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해처럼 빛난다.

“**지혜로운 이**의 기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라. 그가 종교를 통해서 계시한 길을 기쁘게 걸어감으로, 빛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빛들의 주**, **지존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물, 식물, 동물, 땅, 그리고 하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주**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관대한 **불멸의 존재**, 영원한 빛을 타고난 이를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계시며, 동시에 가장 가깝게 우리 혼 안에 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신 **낙원의 영**이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친근한 자보다 더 친근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가장 중대한, 그를 알아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칭송받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친구이며; 우리의 지혜, 생명, 그리고 혼과 육체의 활력이다. 지혜로우신 **창조주**는, 우리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신성하게 완벽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주여**, 영의 다음 생애를 준비하면서 육체 속에서의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소서,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가겠나이다. 우리가 당신과 합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의로움과 함께 합동하도록 인도하는 종교가 옳다는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의 본성이고 최고의 생각이며 의로운 행동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신성한 영과 불멸성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이**의 이 종교는, 모든 악한 생각과 죄 많은 행위로부터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죄를 범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

which he founded in Persia. Aside from Judaism, no religion of that day contained more of these Salem teachings. From the records of this religion Ganid made the following excerpts:

131:5.2 (1450.1) “All things come from, and belong to, the One God — all-wise, good, righteous, holy, resplendent, and glorious. This, our God, is the source of all luminosity. He is the Creator, the God of all good purposes, and the protector of the justice of the universe. The wise course in life is to act in consonance with the spirit of truth. God is all-seeing, and he beholds both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and the good works of the righteous; our God observes all things with a flashing eye. His touch is the touch of healing. The Lord is an all-powerful benefactor. God stretches out his beneficent hand to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God established the world and ordained the rewards for good and for evil. The all-wise God has promised immortality to the pious souls who think purely and act righteously. As you supremely desire, so shall you be. The light of the sun is as wisdom to those who discern God in the universe.

131:5.3 (1449.6) “Praise God by seeking the pleasure of the Wise One. Worship the God of light by joyfully walking in the paths ordained by his revealed religion. There is but one Supreme God, the Lord of Lights. We worship him who made the waters, plants, animals, the earth, and the heavens. Our God is Lord, most beneficent. We worship the most beautiful, the bountiful Immortal, endowed with eternal light. God is farthest from us and at the same time nearest to us in that he dwells within our souls. Our God is the divine and holiest Spirit of Paradise, and yet he is more friendly to man than the most friendly of all creatures. God is most helpful to us in this greatest of all businesses, the knowing of himself. God is our most adorable and righteous friend; he is our wisdom, life, and vigor of soul and body. Through our good thinking the wise Creator will enable us to do his will, thereby attaining the realization of all that is divinely perfect.

131:5.4 (1449.7) “Lord, teach us how to live this life in the flesh while preparing for the next life of the spirit. Speak to us, Lord, and we will do your bidding. Teach us the good paths, and we will go right. Grant us that we may attain union with you. We know that the religion is right which leads to union with righteousness. God is our wise nature, best thought, and righteous act. May God grant us unity with the divine spirit and immortality in himself!

131:5.5 (1449.8) “This religion of the Wise One cleanses the believer from every evil thought and sinful deed. I bow before the God of heaven in repentance if I have offended in thought, word, or

에 회개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자비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 찬양한다. 내가 고백할 때,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나는 그 죄가 내 혼에서 물러갈 것임을 안다. 나는 용서가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을 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 받을 것이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불드시키고, 우리 혼들에게 구원의 힘을 행사하소서. 우리는 완전해지기를 원하기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6. 수두안교(자이나교)

인도에서 한분 **하나님** 사상을--곧 **멜기세덱**의 가르침의 잔재를-- 보존해 온 신자들 중에서 셋째 집단이, 당시에는 **수두안 교도**로 알려져 있었다. 후에 이 신자들은 **자이나교** 추종자로 알려지게 됐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늘의 주**가 가장 높으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늘에서 초소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내세(來世)의 삶을 확신한다. 사람의 혼은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거기서 진정한 영적 본성을 발전시키고 완전함을 성취할 것이다. 하늘의 유산이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구출하고 최종 행복으로 인도하며;의인(義人)은 이미 죄와 그것에 관련된 모든 불행의 종말을 체험했다. 자아는 사람이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며, 자아는 사람의 네 가지 가장 큰 열정:즉 분노, 자존심, 거짓, 탐욕으로 드러난다. 사람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가 대담하게 그런 자유를 즐길 때, 그는 그것을 통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동료 피조물을 대우하면서 삶의 여정을 지내야 한다.”

7. 신토

이 **극동** 지방 종교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당시에 최근의 일이었다. 신도(神道)는 **가니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세계 종교였다. 다음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이 신앙 역시 초기 **멜기세덱** 교훈의 자취를 간직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너희는 모두 내 신성한 능력을 받은 자이며;모든 사람이 내 자비로운 보살핌을 누린다. 나는 온 땅에 의인이 늘어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하늘의 왕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미덕, 둘 다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의로운 자기 본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옛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나는 세상에 태어나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을 나타냈고, 사람이 내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

act —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 and I offer prayers for mercy and praise for forgiveness. I know when I make confession, if I purpose not to do again the evil thing, that sin will be removed from my soul. I know that forgiveness takes away the bonds of sin. Those who do evil shall receive punishment, but those who follow truth shall enjoy the bliss of an eternal salvation. Through grace lay hold upon us and minister saving power to our souls. We claim mercy because we aspire to attain perfection; we would be like God.”

6. SUDUANISM (JAINISM)

131:6.1 (1450.5) The third group of religious believers who preserved the doctrine of one God in India — the survival of the Melchizedek teaching — were known in those days as the Suduanists. Latterly these believers have become known as followers of Jainism. They taught:

131:6.2 (1450.6) “The Lord of Heaven is supreme. Those who commit sin will not ascend on high, but those who walk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shall find a place in heaven. We are assured of the life hereafter if we know truth. The soul of man may ascend to the highest heaven, there to develop its true spiritual nature, to attain perfection. The estate of heaven delivers man from the bondage of sin and introduces him to the final beatitudes; the righteous man has already experienced an end of sin and all its associated miseries. Self is man’s invincible foe, and self is manifested as man’s four greatest passions: anger, pride, deceit, and greed. Man’s greatest victory is the conquest of himself. When man looks to God for forgiveness, and when he makes bold to enjoy such liberty, he is thereby delivered from fear. Man should journey through life treating his fellow creatures as he would like to be treated.”

7. SHINTO

131:7.1 (1451.1) Only recently had the manuscripts of this Far-Eastern religion been lodged in the Alexandrian library. It was the one world religion of which Ganid had never heard. This belief also contained remnants of the earlier Melchizedek teachings as is shown by the following abstracts:

131:7.2 (1451.2) “Says the Lord: ‘You are all recipients of my divine power; all men enjoy my ministry of mercy. I derive great pleasure in the multiplication of righteous men throughout the land. In both the beauties of nature and the virtues of men does the Prince of Heaven seek to reveal himself and to show forth his righteous nature. Since the olden people did not know my name, I manifested myself by being born into the world as a visible existence

런 굴욕까지 참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조물주이며;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내 뜻에 복종한다. 나는 땅과 사해{四海}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다. 비록 내가 위대하고 지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여긴다. 어떤 피조물이든 나를 경배하면, 나는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사람이 염려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영의 인도하심에서 한 걸음씩 멀어진다.’ 자존심은 **하나님**을 흐리게 한다. 너희가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한 가닥 자만심마다 구원의 빛을 차단하는데, 마치 거대한 구름으로 가림과 같다. 너희가 내면에서 바르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거짓과 위선을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혼으로 내 앞에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멸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8. 도교

멜기세덱의 사자{使者}들이 **중국**까지 깊이 들어갔고, 한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중국**에 있는 몇몇 종교의 초기 교훈의 일부가 됐으며; 일신교 진리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은 **도교**였고, **가니드**는 그 창시자의 교훈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수집했다:

“**지존하신 분**은 얼마나 순수하고 고요하며, 얼마나 힘세고 강하며, 얼마나 깊고 헤아릴 수 없는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만물의 영예로운 조상이다.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는 깨우쳤고 현명하다. 네가 **영원자**를 모르면, 무지 자체가 악으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죄에 속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존재**는 하늘들과 땅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는 진실로 영적이며; 홀로 계시고 변치 않는다. 그는 참으로 세상의 어머니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주위에서 움직인다. 이 **위대한 이**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여 그들을 뛰어나게 하고 생존하게 한다. 아는 것이 적더라도, 그는 여전히 **지존자**의 길 위에서 걸을 수 있으며;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참되게 섬기는 선행은 모두 **지존자**로부터 나온다. 만물은 생명을 위해서 **위대한 근원**에게 의존한다. **위대한 지존자**는 자신이 증여한 것에 대한 명예를 원치 않으신다. 그의 권능은 최상이고, 우리 눈앞에서 여전히 숨어 계신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완성하면서 자신의 속성들을 계속 변화시키신다. 하늘의 **이성**은 자신의 계획에서 느리고 인내하지만, 그의 성취는 확실하다. **지존자**는 우주를 뒤덮고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의 넘치는 영향력과 이끄는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참된 선은 물 같아서 모든 것에 복을 내리고 아무 것

and endured such abasement even that man should not forget my name. I am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sun and the moon and all the stars obey my will. I am the ruler of all creatures on land and in the four seas. Although I am great and supreme, still I have regard for the prayer of the poorest man. If any creature will worship me, I will hear his prayer and grant the desire of his heart.’

131:7.3 (1451.3) “‘Every time man yields to anxiety, he takes one step away from the leading of the spirit of his heart.’ Pride obscures God. If you would obtain heavenly help, put away your pride; every hair of pride shuts off saving light, as it were, by a great cloud. If you are not right on the inside, it is useless to pray for that which is on the outside. ‘If I hear your prayers, it is because you come before me with a clean heart, free from falsehood and hypocrisy, with a soul which reflects truth like a mirror. If you would gain immortality, forsake the world and come to me.’”

8. TAOISM

131:8.1 (1451.4) The messengers of Melchizedek penetrated far into China, and the doctrine of one God became a part of the earlier teachings of several Chinese religions; the one persisting the longest and containing most of the monotheistic truth was Taoism, and Ganid collected the following from the teachings of its founder:

131:8.2 (1451.5) “How pure and tranquil is the Supreme One and yet how powerful and mighty, how deep and unfathomable! This God of heaven is the honored ancestor of all things. If you know the Eternal, you are enlightened and wise. If you know not the Eternal, then does ignorance manifest itself as evil, and thus do the passions of sin arise. This wondrous Being existed before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He is truly spiritual; he stands alone and changes not. He is indeed the world’s mother, and all creation moves around him. This Great One imparts himself to men and thereby enables them to excel and to survive. Even if one has but a little knowledge, he can still walk in the ways of the Supreme; he can conform to the will of heaven.

131:8.3 (1452.1) “All good works of true service come from the Supreme. All things depend on the Great Source for life. The Great Supreme seeks no credit for his bestowals. He is supreme in power, yet he remains hidden from our gaze. He unceasingly transmutes his attributes while perfecting his creatures. The heavenly Reason is slow and patient in his designs but sure of his accomplishments. The Supreme overspreads the universe and sustains it all. How great and mighty are his overflowing influence and drawing power! True goodness is like water in that it blesses

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참된 선은 물처럼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데, **지존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존자**는, 만물을 창조하고, 본성으로는 그들을 키우며 영으로는 그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지존자**가 피조물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 기르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하심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인도하고 지도하지만, 자기 주장은 없으시다. 그는 진보를 주관하나 지배하지는 않으신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설픈게 아는 것은 위험하다. 위대해지기를 열망하는 자는 스스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창조 시에, **지존자**가 세상의 어머니가 되셨다. 사람이 어머니를 아는 것은, 자신의 아들신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지혜자다. 너는 마치 그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라. 친절로 모욕에 보답하라. 네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너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네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지존자**는 어디든지 충만하며; 왼편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시며; 모든 창조를 도우시고 모든 참된 존재 속에 거하신다. 너희는 **지존자**를 찾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자기 길의 악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면, 그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죄 값을 면할 수 있으며; 화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지존자**는 모든 창조물의 안전한 피난처이며; 인류의 수호자이고 구원자이다. 너희가 날마다 그를 구하면, 너희는 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으므로, 만인에게 정말로 가장 귀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됬됨이에 따라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동료를 더욱 도와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영원자**의 법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신성한 법에 대한 무지는 불행과 재난이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는 마음이 관대하다.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네 육체가 죽더라도 혼은 살아남아서 영으로 봉사하리라. 네가 자신의 미천함을 인식할 때 진정으로 현명해진다. 네가 **영원자**의 빛 속에 거한다면, **지존자**에 대한 깨달음을 누릴 것이다. **지존자**를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영원자**를 추구한다. 사람이 죽으면, 고향으로 귀환하는 긴 여행길에서 그 영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9. 유교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적게 인정하는 종교조차, **멜기세덱**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계승자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교**에 대한 **가니드**의 요약은 다

everything and harms nothing. And like water, true goodness seeks the lowest places, even those levels which others avoid, and that is because it is akin to the Supreme. The Supreme creates all things, in nature nourishing them and in spirit perfecting them. And it is a mystery how the Supreme fosters, protects, and perfects the creature without compelling him. He guides and directs, but without self-assertion. He ministers progression, but without domination.

131:8.4 (1452.2) “The wise man universalizes his heart.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Those who aspire to greatness must learn to humble themselves. In creation the Supreme became the world’s mother. To know one’s mother is to recognize one’s sonship. He is a wise man who regards all part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hole. Relate yourself to every man as if you were in his place. Recompense injury with kindness. If you love people, they will draw near you — you will have no difficulty in winning them.

131:8.5 (1452.3) “The Great Supreme is all-pervading; he is on the left hand and on the right; he supports all creation and indwells all true beings. You cannot find the Supreme, neither can you go to a place where he is not. If a man recognizes the evil of his ways and repents of sin from the heart, then may he seek forgiveness; he may escape the penalty; he may change calamity into blessing. The Supreme is the secure refuge for all creation; he is the guardian and savior of mankind. If you seek for him daily, you shall find him. Since he can forgive sins, he is indeed most precious to all men. Always remember that God does not reward man for what he does but for what he is; therefore should you extend help to your fellows without the thought of rewards. Do good without thought of benefit to the self.

131:8.6 (1452.4) “They who know the laws of the Eternal are wise. Ignorance of the divine law is misery and disaster. They who know the laws of God are liberal minded. If you know the Eternal, even though your body perish, your soul shall survive in spirit service. You are truly wise when you recognize your insignificance. If you abide in the light of the Eternal, you shall enjoy the enlightenment of the Supreme. Those who dedicate their persons to the service of the Supreme are joyous in this pursuit of the Eternal. When man dies, the spirit begins to wing its long flight on the great home journey.”

9. CONFUCIANISM

131:9.1 (1452.5) Even the least God-recognizing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acknowledged the monotheism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their persistent successors. Ganid’s summary of

음과 같았다:

“하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다. 진리는 실제적이고 신성하다. 만물이 하늘에서 나왔고, **위대한 하늘**은 실수가 없다. 하늘은, 열등한 피조물에 대한 교육과 향상시킴을 도와주도록, 많은 신하를 임명했다. 위대하신, 아주 위대하신 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통치하는 **한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에서 장엄하고 심판에서 엄중하시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은, 많은 열등한 민족에게까지 도덕적 감각을 주신다. 하늘의 관대함은 멈추지 않는다. 자비심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최고로 정선된 선물이다. 하늘은 사람의 혼에 그것의 고상함을 수여하며; 사람의 덕은 하늘의 고상함이라는 이 기증품의 열매다. **위대한 하늘**은 만물을 통찰하고 만사에 사람과 함께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하늘**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를 때, 우리는 성공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신성한 선조들의 종이 된다면, 확신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늘**의 위엄을 경외하자. 오, **하나님, 지고자여**, 다스리는 **군주**시여, 우리는 심판이 당신에게 달려있음과, 모든 자비가 신성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내게서 어떤 덕이든지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거하는 **하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늘**은, 종종 내 신앙에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마음 속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사물에 대한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선한 신앙 없이 살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선과 악은 원인 없이 사람에게 발생되지 않는다. **하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혼과 관계를 이룬다. 네가 잘못됐음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너의 실책을 고백하고 빨리 고쳐라.

“현명한 사람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단순한 생계를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는다. **하늘**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다. 뛰어난 사람은 자제하고, 염려와 공포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 마음 속에 의심을 품지 마라. 모든 선한 행위는 보상 받는다. 뛰어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악의를 갖지 않는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모든 벌 받는 자에게 자비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정벌을 복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위대한 하늘**의 방식이다. 모든 피조물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반면, 고귀한 자의 영은 높은 데서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가장 밝은 영광스런 빛에 오르기까지 나아간다.”

10. “우리 종교”

낙원 아버지에 관한 세계 종교의 교훈을 모은

Confucianism was:

131:9.2 (1452.6) “What Heaven appoints is without error. Truth is real and divine. Everything originates in Heaven, and the Great Heaven makes no mistakes. Heaven has appointed many subordinates to assist in the instruction and uplifting of the inferior creatures. Great, very great, is the One God who rules man from on high. God is majestic in power and awful in judgment. But this Great God has conferred a moral sense even on many inferior people. Heaven's bounty never stops. Benevolence is Heaven's choicest gift to men. Heaven has bestowed its nobility upon the soul of man; the virtues of man are the fruit of this endowment of Heaven's nobility. The Great Heaven is all-discerning and goes with man in all his doings. And we do well when we call the Great Heaven our Father and our Mother. If we are thus servants of our divine ancestors, then may we in confidence pray to Heaven. At all times and in everything let us stand in awe of the majesty of Heaven. We acknowledge, O God, the Most High and sovereign Potentate, that judgment rests with you, and that all mercy proceeds from the divine heart.

131:9.3 (1453.1) “God is with us; therefore we have no fear in our hearts. If there be found any virtue in me, it is the manifestation of Heaven who abides with me. But this Heaven within me often makes hard demands on my faith. If God is with me, I have determined to have no doubt in my heart. Faith must be very near the truth of things, and I do not see how a man can live without this good faith. Good and evil do not befall men without cause. Heaven deals with man's soul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When you find yourself in the wrong, do not hesitate to confess your error and be quick to make amends.

131:9.4 (1453.2) “A wise man is occupied with the search for truth, not in seeking for a mere living. To attain the perfection of Heaven is the goal of man. The superior man is given to self-adjustment, and he is free from anxiety and fear. God is with you; have no doubt in your heart. Every good deed has its recompense. The superior man murmurs not against Heaven nor holds a grudge against men. What you do not like when done to yourself, do not to others. Let compassion be a part of all punishment; in every way endeavor to make punishment a blessing. Such is the way of Great Heaven. While all creatures must die and return to the earth, the spirit of the noble man goes forth to be displayed on high and to ascend to the glorious light of final brightness.”

10. “OUR RELIGION”

131:10.1 (1453.3) After the arduous labor of effecting

이 자료집을 완성하는 힘든 수고를 마친 후에, **가니드**는 **예수**의 가르침의 결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그 믿음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구성하는 과제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젊은이는 그런 믿음을 습관적으로 “우리 종교”라고 부르곤 했다.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너희는 정신과 심성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동시에,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 한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서 이뤄졌으며, 진지한 인간의 모든 혼 속에 그의 영으로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실한 **창조주**이신 그에게 우리 혼을 위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만물과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매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를 동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한 풍성함은, 무한히 깊고 영원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몸소 체험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공의는 발견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어도, 그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주를 채우는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도 거하신다. 사람의 정신은 인간적, 필사적이지만, 사람의 영은 신성하고 불멸한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혜로우시다. 우리 세상 부모가, 악한 경향이 있음에도,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복을 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반드시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찾기 원하고 진실로 그분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한 자녀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악인조차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도 언제나 친절하시다. 더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악한 기질을 후회하고 모든 알려진 죄를 떠날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며, 그분 속에는 변함이 없고 바뀌는 그림자도 없다. 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했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내 민족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는 그가 또한 내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 도우미이신 **진리의 영**의 도움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하

this compilation of the teachings of the world religions concerning the Paradise Father, Ganid set himself to the task of formulating what he deemed to be a summary of the belief he had arrived at regarding God as a result of Jesus' teaching. This young man was in the habit of referring to such beliefs as “our religion.” This was his record:

131:10.2 (1453.4)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and you should love him with all your mind and heart while you do your very best to love all his children as you love yourself. This one God is our heavenly Father, in whom all things consist, and who dwells, by his spirit, in every sincere human soul. And we who are the children of God should learn how to commit the keeping of our souls to him as to a faithful Creator. With our heavenly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Since he is the Creator, having made all things and all beings, it could not be otherwise. Though we cannot see God, we can know him. And by daily liv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we can reveal him to our fellow men.

131:10.3 (1453.5) “The divine riches of God's character must be infinitely deep and eternally wise. We cannot search out God by knowledge, but we can know him in our hearts by personal experience. While his justice may be past finding out, his mercy may be received by the humblest being on earth. While the Father fills the universe, he also lives in our hearts. The mind of man is human, mortal, but the spirit of man is divine, immortal. God is not only all-powerful but also all-wise. If our earth parents, being of evil tendency, know how to love their children and bestow good gifts on them, how much more must the good Father in heaven know how wisely to love his children on earth and to bestow suitable blessings upon them.

131:10.4 (1454.1) “The Father in heaven will not suffer a single child on earth to perish if that child has a desire to find the Father and truly longs to be like him. Our Father even loves the wicked and is always kind to the ungrateful. If more human beings could only know about the goodness of God, they would certainly be led to repent of their evil ways and forsake all known sin. All good things come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 in whom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The spirit of the true God is in man's heart. He intends that all men should be brothers. When men begin to feel after God, that is evidence that God has found them, and that they are in quest of knowledge about him. We live in God and God dwells in us.

131:10.5 (1454.2) “I will no longer be satisfied to believe that God is the Father of all my people; I will henceforth believe that he is also my Father. Always will I try to worship God with the help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is my helper when I have

상 힘쓸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 배워서, **하나님** 경배를 실천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최선을 다하여 동료 필사자를 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을 구할 것이며, 그는 동료를 돕기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싶다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치는 애정 어린 이 모든 봉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의 보살핌의 고상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매일 감사할 것이며;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놀라운 일로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는 내게, **전능자**, **창조주**, **권능**, 및 **자비**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내 영 **아버지**이며, 이 세상 자녀로서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선생님은, 내가 그분을 갈구함으로써 그를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는 그분과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의 이 새 종교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영구적인 행복을 준다. 나는 죽을 때까지 충실할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나는 선한 모든 것을 입증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기를 배우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동료들에게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이 신앙으로 인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내 형제임을 멈춰서 생각하면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실임에 틀림없다. 사람의 형제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뻐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내 형제임에 틀림없다.

“이제부터 나는 은밀히 선을 행할 것이며; 또한 홀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동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는 이 훈련을 정말로 통달하지는 못했다. 비록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하나님**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종교’에서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간적이고 적극적이심을 발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런 **존재**가 바로 내 영적 **아버지**이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오직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진실된 바람으로만, 나는 결국 그를 발견할 것이며,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드디어 나는 한 **하나님**, 경탄할만한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를 갖게 됐고, 그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다.”

become really God-knowing. But first of all I am going to practice worshiping God by learning how to do the will of God on earth; that is, I am going to do my best to treat each of my fellow mortals just as I think God would like to have him treated. And when we live this sort of a life in the flesh, we may ask many things of God, and he will give us the desire of our hearts that we may be the better prepared to serve our fellows. And all of this loving service of the children of God enlarges our capacity to receive and experience the joys of heaven, the high pleasures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heaven.

131:10.6 (1454.3) “I will every day thank God for his unspeakable gifts; I will praise him for his wonderful works to the children of men. To me he is the Almighty, the Creator, the Power, and the Mercy, but best of all, he is my spirit Father, and as his earth child I am sometime going forth to see him. And my tutor has said that by searching for him I shall become like him. By faith in God I have attained peace with him. This new religion of ours is very full of joy, and it generates an enduring happiness. I am confident that I shall be faithful even to death, and that I will surely receive the crown of eternal life.

131:10.7 (1454.4) “I am learning to prove all things and adhere to that which is good. Whatsoever I would that men should do to me, that I will do to my fellows. By this new faith I know that man may become the son of God, but it sometimes terrifies me when I stop to think that all men are my brothers, but it must be true. I do not see how I can rejoice in the fatherhood of God while I refuse to accept the brotherhood of man. Whosoever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If that is true, then all men must be my brothers.

131:10.8 (1454.5) “Henceforth will I do my good deeds in secret; I will also pray most when by myself. I will judge not that I may not be unfair to my fellows. I am going to learn to love my enemies; I have not truly mastered this practice of being Godlike. Though I see God in these other religions, I find him in ‘our religion’ as being more beautiful, loving, merciful, personal, and positive. But most of all, this great and glorious Being is my spiritual Father; I am his child. And by no other means than my honest desire to be like him, I am eventually to find him and eternally to serve him. At last I have a religion with a God, a marvelous God, and he is a God of eternal salvation.”

제 132편. 로마에 머무는 동안

⇨ 131

유랜시아 책

133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2편
로마에 머무는 동안

섹션

소개

1. 참된 가치관
2. 선과 악
3. 진리와 신앙
4. 개인적인 사역
5. 부자에게 준 충고
6. 사회적인 사역
7. 로마를 두루 여행함

PAPER 132
THE SOJOURN AT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True Values
2. Good and Evil
3. Truth and Faith
4. Personal Ministry
5. Counseling the Rich Man
6. Social Ministry
7. Trips about Rome

소개

인도의 왕자들이 **로마** 통치자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고노드**가 갖고 왔으므로, 이 두 **인도인**과 **예수**는 **로마**에 도착한지 3일 후에 **티베리우스**를 만났다. 성미가 괴팍한 이 황제는 그날 따라 평소와 달리 매우 기분 좋았고, 세 사람과 오래 이야기했다. 그들이 앞에서 물러가자, 이 황제는 오른 쪽에서 있던 측근에게 **예수**에 대해, “내가 저 사람의 왕다운 자태와 우아한 태도를 가졌다면, 나도 진짜 황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로마에 있는 동안, **가니드**는 공부하는 것과 도시의 관심거리가 되는 곳들을 방문하는 것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아버지는 많은 사업상 거래가 있었고, 아들이 자라서 거대한 무역 이익을 관리하는 훌륭한 후계자가 되기 원했으므로, 소년에게 상업 세계를 보여 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로마**에는 많은 **인도** 시민이 있었고, **고노드**가 직접 채용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를 위해 자주 통역을 맡아 줬으므로, 그럴 때마다 **예수**는 하루 종일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예수**는 이런 여가 시간으로 200만 인구의 이 도시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었다. 그는 광장을 자주 방문했는데, 이곳은 정치, 사법, 및 상업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는 **캐피토리움**에 종종 올라갔고 거기서, **주**

INTRODUCTION

132:0.1 (1455.1) SINCE Gonod carried greetings from the princes of India to Tiberius, the Roman ruler, on the third day after their arrival in Rome the two Indians and Jesus appeared before him. The morose emperor was unusually cheerful on this day and chatted long with the trio. And when they had gone from his presence, the emperor, referring to Jesus, remarked to the aide standing on his right, “If I had that fellow’s kingly bearing and gracious manner, I would be a real emperor, eh?”

132:0.2 (1455.2) While at Rome, Ganid had regular hours for study and for visiting places of interest about the city. His father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and desiring that his son grow up to become a worthy successor in the management of his vast commercial interests, he thought the time had come to introduce the boy to the business world. There were many citizens of India in Rome, and often one of Gonod’s own employees would accompany him as interpreter so that Jesus would have whole days to himself; this gave him time in which to become thoroughly acquainted with this city of two million inhabitants. He was frequently to be found in the forum, the center of political, legal, and business life. He often

피터, 주노, 및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이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이 **로마인**이 붙들려 있는 무지한 속박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그는 **팔라틴 언덕**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황제의 저택, **아폴로** 신전,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 도서관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때 **로마 제국**은, 남부 **유럽** 전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를 포함했으며; 거기에 사는 주민 중에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시민도 포함됐다. 이런 세계적 집결지에서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알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가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승낙한 주된 이유였다.

예수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람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이 도시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에 가졌던 다양한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제국의 수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과 그들에게 영향 끼친 것이었다. **예수**는 **로마**에서 첫 주간(週間)이 지나가기 전에, **견유학과, 스토아 학파**, 신비 종파들, 그리고 특히 **미드라** 숭배 집단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찾아냈고, 그들과 친숙해졌다. **예수**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유대인**이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의 사자(使者)들이 하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곧 **로마**로 오게 될 것을 아주 확실히 예견했으며; 그래서 그는, 가장 경탄할 만한 방법으로, 그들의 복음이 좀 더 수월하고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토아 학파**에서 뛰어난 5명, **견유학과**에서 11명, 그리고 신비종파의 지도자 중에서 열여섯 명을 선택했고, 이 종교 교사들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여가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교육 방법은 이랬다: 그들의 실책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의 교훈이 내포하는 결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각 경우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를 분리해 낸 후에, 이 진리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조정되고 밝게 빛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진리가 강화되어, 관련된 오류를 효과적으로 밀어내게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가르쳤던 이 남녀들은, 나중에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교훈에서, 좀 더 첨부되고 비슷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복음 전파자들의 교훈이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거기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강력한 추진제가 제공됐다.

우리가 기록하려는 두 가지 사실, 즉 **예수**가 **로마**에서 가르쳤던 32명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오직 두 명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과;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설립될 때 30명이 중심인물이 됐고,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미드라교** 신전을 그 도시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로 바꾸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는 것에서, 주목할 만한 이 업적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뒤에서 인간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로서는, 그

went up to the Capitolium and pondered the bondage of ignorance in which these Romans were held as he beheld this magnificent temple dedicated to Jupiter, Juno, and Minerva. He also spent much time on Palatine hill, where were located the emperor's residence, the temple of Apollo, and the Greek and Latin libraries.

132:0.3 (1455.3) At this time the Roman Empire included all of southern Europe, Asia Minor, Syria, Egypt, and northwest Africa; and its inhabitants embraced the citizens of every country of the Eastern Hemisphere. His desire to study and mingle with this cosmopolitan aggregation of Urantia mortals was the chief reason why Jesus consented to make this journey.

132:0.4 (1455.4) Jesus learned much about men while in Rome, but the most valuable of all the manifold experiences of his six months' sojourn in that city was his contact with, and influence upon,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empire's capital. Before the end of the first week in Rome Jesus had sought out, and had made the acquaintance of, the worthwhile leaders of the Cynics, the Stoics, and the mystery cults, in particular the Mithraic group. Whether or not it was apparent to Jesus that the Jews were going to reject his mission, he most certainly foresaw that his messengers were presently coming to Rome to proclaim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therefore set about, in the most amazing manner, to prepare the way for the better and more certain reception of their message. He selected five of the leading Stoics, eleven of the Cynics, and sixteen of the mystery-cult leaders and spent much of his spare time for almost six months in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se religious teachers. And this was his method of instruction: Never once did he attack their errors or even mention the flaws in their teachings. In each case he would select the truth in what they taught and then proceed so to embellish and illuminate this truth in their minds that in a very short time this enhancement of the truth effectively crowded out the associated error; and thus were these Jesus-taught men and women prepared for the subsequent recognition of additional and similar truths in the teachings of the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It was this early acceptance of the teachings of the gospel preachers which gave that powerful impetus to the rapid spread of Christianity in Rome and from there throughout the empire.

132:0.5 (1456.1) The significance of this remarkable doing can the better be understood when we record the fact that, out of this group of thirty-two Jesus-taught religious leaders in Rome, only two were unfruitful; the thirty became pivotal individuals i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ity in Rome, and certain of them also aided in turning the chief Mithraic temple into the first Christian church of that city. We who view human activities from

리고 19세기 시간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교**가 빨리 퍼지도록 하는 무대를 일찍부터 설치함에서, 탁월한 가치를 갖는 정확하게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다음과 같다:

1. **시몬 베드로**를 사도(使徒)로 선택하고 유지시킨 것.

2.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대화한 것, 그의 죽음은 **다소**의 **사울**을 얻도록 이끌었다.

3. **로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되도록, 30명의 이 **로마인**을 미리 준비시킨 것.

스데반도, 그리고 선택받은 30명의 **로마인**도, 그들의 모든 체험 전반에 걸쳐서, 자기들이 한때 이야기 나눴던 그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종교 교육의 주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원래의 이 32명을 위한 **예수**의 활동은 완전히 사적(私的)인 만남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수고하는 동안, **다마스쿠스** 서기관이 동시에 세 사람보다 많이 만나는 일은 결코 없었고, 두 사람보다 많이 만나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대부분 그들을 한 사람씩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이 위대한 종교 훈련 작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녀들이 전통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미래의 모든 종교 발전과는 달리, 고정된 선입견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몇 년 후에 많은 사람이 매우 신속하게 뒤따랐으므로, **베드로**, **바울**, 그리고 **로마**에 온 다른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그들보다 먼저 왔던, 그리고 그들이 새 복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상상했던 대로) 길을 준비해 놔던, 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의 정체를 한 번도 실제로 추측한 적이 없었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에 대해 여러 개인이 설명한 것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안디옥**의 천막 짓는 이”가 바로 “**다마스쿠스** 서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 번은, **로마**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다마스쿠스** 서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였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자기 스승이 **로마**에 온 적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즉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다.

1. 참된 가치관

로마 체류기간 중에서 초기에, **예수**가 밤새도록 이야기 나눈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지도자 **안가몬**이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친구가 됐고,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예수**가 **안가몬**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다시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behind the scenes and in the light of nineteen centuries of time recognize just three factors of paramount value in the early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rapid spread of Christianity throughout Europe, and they are:

132:0.6 (1456.2) 1. The choosing and holding of Simon Peter as an apostle.

132:0.7 (1456.3) 2. The talk in Jerusalem with Stephen, whose death led to the winning of Saul of Tarsus.

132:0.8 (1456.4) 3. The preliminary preparation of these thirty Romans for the subsequent leadership of the new religion in Rome and throughout the empire.

132:0.9 (1456.5) Through all their experiences, neither Stephen nor the thirty chosen ones ever realized that they had once talked with the man whose name became the subject of their religious teaching. Jesus' work in behalf of the original thirty-two was entirely personal. In his labors for these individuals the scribe of Damascus never met more than three of them at one time, seldom more than two, while most often he taught them singly. And he could do this great work of religious training because these men and women were not tradition bound; they were not victims of a settled preconception as to all future religious developments.

132:0.10 (1456.6) Many were the times in the years so soon to follow that Peter, Paul, and the other Christian teachers in Rome heard about this scribe of Damascus who had preceded them, and who had so obviously (and as they supposed unwittingly) prepared the way for their coming with the new gospel. Though Paul never really surmised the identity of this scribe of Damascus, he did, a short time before his death,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personal descriptions,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tentmaker of Antioch” was also the “scribe of Damascus.” On one occasion, while preaching in Rome, Simon Peter, on listening to a description of the Damascus scribe, surmised that this individual might have been Jesus but quickly dismissed the idea, knowing full well (so he thought) that the Master had never been in Rome.

1. TRUE VALUES

132:1.1 (1456.7) It was with Angamon, the leader of the Stoics, that Jesus had an all-night talk early during his sojourn in Rome. This man subsequently became a great friend of Paul and proved to be one of the strong supporters of the Christian church at Rome. In substance,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taught Angamon:

참된 가치관의 기준은,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신성한 수준의 영원한 실체에서 찾아야 한다.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저급하고 물질적인 모든 표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물질적 사실들의 연관성을 알아내기에 국한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자신이 유물론자 또는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를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바로 철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도덕적 통찰력과 영적 달성이 균형 잡힌 비례로 증가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물질적인 문화가 무제한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국 문명을 위협할 수 있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은, 모든 과학적 노력을 파괴하는 잠재된 씨앗을 그 속에 품고 있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도덕 가치에 대한 감각을 포기하고 영적(靈的) 목적 달성을 거부한 문명이 궁극에 붕괴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과학자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언제나 다투게 돼있다. 그러나 높은 도덕적 가치관과 영적 시험 수준에 대한 공통 기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과학자와 이상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각 시대마다, 과학자와 종교가는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장벽 앞에서 시험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진보를 이루는 봉사에 더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계속적인 생존을 합리화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노력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어떤 투쟁이든지 삼가야 한다. 어떤 시대든지 소위 과학이나 종교가 잘못됐다면, 그 활동을 정화(淨化)하든지, 아니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체계의 물질적 과학 또는 영적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132:1.2 (1457.1) The standard of true values must be looked for in the spiritual world and on divine levels of eternal reality. To an ascending mortal all lower and material standards must be recognized as transient, partial, and inferior. The scientist, as such, is limited to the discovery of the relatedness of material facts. Technically, he has no right to assert that he is either materialist or idealist, for in so doing he has assumed to forsake the attitude of a true scientist since any and all such assertions of attitude are the very essence of philosophy.

132:1.3 (1457.2) Unless the moral insight and the spiritual attainment of mankind are proportionately augmented, the unlimited advancement of a purely materialistic culture may eventually become a menace to civilization. A purely materialistic science harbors within itself the potential seed of the destruction of all scientific striving, for this very attitude presages the ultimate collapse of a civilization which has abandoned its sense of moral values and has repudiated its spiritual goal of attainment.

132:1.4 (1457.3) The materialistic scientist and the extreme idealist are destined always to be at loggerheads. This is not true of those scientists and idealists who are in possession of a common standard of high moral values and spiritual test levels. In every age scientists and religionists must recognize that they are on trial before the bar of human need. They must eschew all warfare between themselves while they strive valiantly to justify their continued survival by enhanced devotion to the service of human progress. If the so-called science or religion of any age is false, then must it either purify its activities or pass away before the emergence of a material science or spiritual religion of a truer and more worthy order.

2. 선과 악

마르더스는 로마에서 유명한 **견유학파** 지도자였고, **다마스쿠스** 서기관에게 훌륭한 친구가 됐다. 그는 **예수**와 매일 이야기를 나눴고, 그의 숭고한 가르침에 밤마다 귀를 기울였다. **마르더스**와 가진 더 중요한 토론 중에는, 이 진지한 **견유학자**의 선과 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있었다. **예수**가 말한 내용을 20세기 언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제여, 선과 악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납득하는 상대적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네가 윤리적으로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면, 현재의 사회 관례를 선에 대한 너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후퇴한다면, 너는 현재의 종교 풍습이나 전통을 선의 기준으로 삼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세계에서 생존하여 영원속으로 빠져나오는 혼은, 그런 선과 악 사이에서

2. GOOD AND EVIL

132:2.1 (1457.4) Mardus was the acknowledged leader of the Cynics of Rome, and he became a great friend of the scribe of Damascus. Day after day he conversed with Jesus, and night upon night he listened to his supernal teaching. Among the more important discussions with Mardus was the one designed to answer this sincere Cynic's question about good and evil. In substance, and in twentieth-century phraseology, Jesus said:

132:2.2 (1457.5) My brother, good and evil are merely words symbolizing relative levels of human comprehension of the observable universe. If you are ethically lazy and socially indifferent, you can take as your standard of good the current social usages. If you are spiritually indolent and morally unprogressive, you may take as your standards of good the religious practices and traditions of your contemporaries. But the soul that survives time

선명하게 몸소 선택해야 하며, 선과 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도록 보내신 신성한 영이 설립한, 영적 기준의 진정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주하는 이 영이, 바로 인격의 생존을 정하는 표준이다.

선이란, 진리처럼, 항상 상대적이고, 반드시 악과 대조된다. 이런 선과 진리의 특성을 감지하는 것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존에 필수 요소인 그런 몸소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

과학의 지시, 사회 관례, 그리고 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따르는, 영적으로 눈이 먼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자유를 희생하고 영적 해방을 잃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혼은, 지적 앵무새, 사회의 자동인형, 그리고 종교 권위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선함은, 도덕적 자아_실현과 영적 인격 달성이라는--즉 내주하는 **조울사**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증가하는 자유의 새로운 수준을 향해서 항상 자라간다. 체험은, 그것이 미{美}를 더욱 음미하게 하고, 도덕적 의지를 증가시키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증대시키고, 동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며, 영적 이상을 고양시키고, 시간세계에서 최상의 인간적 동기를 내주하는 **조울사**의 영원한 계획들과 연합시킬 때 선하며, 그런 모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는 염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직접 인도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좀 더 닮아가도록, 신성한 열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피조물이 성장하는 계단을 올라감에 따라서, 선을_체험하고 진리를_헤아릴 수 있는 능력에 완전히 일치되도록, 선이 커지고 악이 줄어드는 것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인간의 혼이 최종의 영 수준을 성취하기 전에는, 오류를 수용하거나 악을 체험할 수 있는 역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善}은, 생생하고, 상대적이며, 항상 진보하고, 변함없이 개인적인 체험이며, 진리와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것에 영구히 연관돼 있다. 선은 영적 수준의 긍정적 진리_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체험에서 부정적 상대물과--곧 잠재적 악의 그림자와--대조해서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너희가 **낙원**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선은 항상, 소유라기보다 탐구, 달성의 체험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목표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의{義}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때라도, 선의 부분적 달성을 통해서 증가돼 가는 만족을 체험한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사람의 도덕적 의지, 즉 인격이 실체인 동시에 실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인격은 이런

and emerges into eternity must make a living and personal choice between good and evil as they are determined by the true values of the spiritu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divine spirit which the Father in heaven has sent to dwell within the heart of man. This indwelling spirit is the standard of personality survival.

132:2.3 (1457.6) Goodness, like truth, is always relative and unfailingly evil-contrasted. It is the perception of these qualities of goodness and truth that enables the evolving souls of men to make those personal decisions of choice which are essential to eternal survival.

132:2.4 (1458.1) The spiritually blind individual who logically follows scientific dictation, social usage, and religious dogma stands in grave danger of sacrificing his moral freedom and losing his spiritual liberty. Such a soul is destined to become an intellectual parrot, a social automaton, and a slave to religious authority.

132:2.5 (1458.2) Goodness is always growing toward new levels of the increasing liberty of moral self-realization and spiritual personality attainment — the discovery of, and identificat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An experience is good when it heightens the appreciation of beauty, augments the moral will, enhances the discernment of truth, enlarges the capacity to love and serve one's fellows, exalts the spiritual ideals, and unifies the supreme human motives of time with the eternal plans of the indwelling Adjuster, all of which lead directly to an increased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thereby fostering the divine passion to find God and to be more like him.

132:2.6 (1458.3) As you ascend the universe scale of creature development, you will find increasing goodness and diminishing evil in perfect accordance with your capacity for goodness-experience and truth-discernment. The ability to entertain error or experience evil will not be fully lost until the ascending human soul achieves final spirit levels.

132:2.7 (1458.4) Goodness is living, relative, always progressing, invariably a personal experience, and everlastingly correlated with the discernment of truth and beauty. Goodness is found in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truth-values of the spiritual level, which must, in human experience, be contrasted with the negative counterpart — the shadows of potential evil.

132:2.8 (1458.5) Until you attain Paradise levels, goodness will always be more of a quest than a possession, more of a goal than an experience of attainment. But even as you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you experience increasing satisfaction in the partial attainment of goodness. The presence of goodness and evil in the world is in itself positive proof of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선악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한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낙원에 도달할 때가 되면, 진정한 영 가치를 자아{自我}와 동일시하게 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수용력이 확장돼서, 생명의 빛의 완전한 소유를 달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하게 된 그런 영 인격은, 선, 아름다움, 및 진리의 명확한 최상의 자질과 매우 완전하고 신성하게 통합되고 영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낙원 통치자들**이 비추는 신성한 빛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광채{光彩}에 노출될 때, 그런 의로운 영이 잠재적인 악의 어떤 부정적 그림자든지 만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모든 영 인격들 안에서, 선은 더 이상 부분적이거나, 대조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으며; 선은 신성하게 완성됐고 영적으로 참만하게 됐으며; **지존자**의 순수함과 완전함에 가까워진다.

악의 가능성은, 도덕적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는 아니다. 그림자는 단지 상대적으로 실재할 뿐이다. 실제 악은 개인 체험으로서 필연적이지 않다. 잠재적 악은, 낮은 수준의 영적 발전을 이루는 동안,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범위 안에서 결단하게 하는 자극제로서, 똑같이 잘 작용한다. 악은 오직 도덕적 정신이 악을 선택했을 때, 몸소 체험하는 실체가 된다.

3. 진리와 신앙

나본은 **그리스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주류{主流} 신비교였던 **미드라교**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이 **미드라 신교** 대제사장은, **다마스쿠스** 서기관과 여러 차례 회담하는 가운데, 특히 어느 날 저녁에 나섰던 진리와 신앙에 관한 토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본**은 **예수**를 개종시키려 생각했고, 심지어 **미드라교** 선생이 되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제의하기까지 했다. 그는, **예수**가 천국 복음에 대한 초기 개종자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 용어로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함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지식 이상{以上}이다. 지식은 관찰되는 사물과 관계하지만, 진리는 그런 순전히 물질적인 수준을 초월하는데, 그 안에서 지혜와 어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체험, 심지어 영적이고 생생한 실체들도 포함한다. 지식은 과학에서; 지혜는 진정한 철학에서; 진리는 영적인 삶의 종교 체험에서 비롯된다. 지식은 사실을; 지혜는 관계를; 진리는 실체 가치를 다룬다.

man's moral will, the personality, which thus identifies these values and is also able to choose between them.

132:2.9 (1458.6) By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Paradise the ascending mortal's capacity for identifying the self with true spirit values has become so enlarged as to result in the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the possession of the light of life. Such a perfected spirit personality becomes so wholly, divinely, and spiritually unified with the positive and supreme qualities of goodness, beauty, and truth that there remains no possibility that such a righteous spirit would cast any negative shadow of potential evil when exposed to the searching luminosity of the divine light of the infinite Rulers of Paradise. In all such spirit personalities, goodness is no longer partial, contrastive, and comparative; it has become divinely complete and spiritually replete; it approaches the purity and perfection of the Supreme.

132:2.10 (1458.7) The possibility of evil is necessary to moral choosing, but not the actuality thereof. A shadow is only relatively real. Actual evil is not necessary as a personal experience. Potential evil acts equally well as a decision stimulus in the realms of moral progress on the lower levels of spiritual development. Evil become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only when a moral mind makes evil its choice.

3. TRUTH AND FAITH

132:3.1 (1459.1) Nabon was a Greek Jew and foremost among the leaders of the chief mystery cult in Rome, the Mithraic. While this high priest of Mithraism held many conferences with the Damascus scribe, he was most permanently influenced by their discussion of truth and faith one evening. Nabon had thought to make a convert of Jesus and had even suggested that he return to Palestine as a Mithraic teacher. He little realized that Jesus was preparing him to become one of the early convert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the substance of Jesus' teaching was:

132:3.2 (1459.2) Truth cannot be defined with words, only by living. Truth is always more than knowledge. Knowledge pertains to things observed, but truth transcends such purely material levels in that it consorts with wisdom and embraces such imponderables as human experience, even spiritual and living realities. Knowledge originates in science; wisdom, in true philosophy; truth, i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spiritual living. Knowledge deals with facts; wisdom, with relationships; truth, with reality values.

사람은 과학을 구체화시키고, 철학을 공식화시키며, 진리를 교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삶에서 발전적 투쟁에 적응시키는 일에 정신적으로 나태한 동시에, 미지{未知}의 세계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인{自然人}은, 자신의 생각하는 습관이나 살아가는 방법에 변화를 시도하기에 둔하다.

계시된 진리, 즉 개인적으로 발견된 진리는, 인간 혼에게 최상의 기쁨이며, 물질 정신과 내주하는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진리를 분별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 혼의 영원한 구원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처럼 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개발하도록 이 필사자를 인도하는, 선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확인된다. 참된 지식과 진리 사이에는 결코 충돌이 없다. 인간의 믿음, 즉 편견으로 채색되고, 두려움 때문에 변형되고, 물질적 발견이나 영적 진보의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기를 염려하여 지배당하는 믿음과 지식 사이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신앙의 실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참됨은, 사람의 사고, 지혜, 및 윤리와 이상이 자신의 신앙, 즉 자신의 최고의 희망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참된 신앙은, 심오한 숙고와, 진지한 자아 비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도덕 의식 위에 세워진다. 신앙은, 영성화{靈性化}된 창조적 상상력이 주는 영감{靈感}이다.

신앙은, 불멸의 씨앗인 신성한 불꽃이 초인적으로 활동하도록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사람의 정신 속에 살아있으며, 영원한 생존의 잠재력이다. 식물과 동물은, 자체의 분자들을 동일하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자동적으로 전하는 방법으로 시간세계에서 생존한다. 사람의 인간 혼은(곧 인격은), 내주하는 이 신성{神性}의 불꽃과 정체성을 결합함으로써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하는데, 그 불꽃은 불멸하며, 지속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진취적 우주 실존으로서 인간의 인격을 영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인간 혼 속에 감춰진 씨앗은 불멸하는 영이다. 혼의 두 번째 세대는, 진보하는 영적 실존의 인격이 형태화되는 계통에서 첫 번째인데, 그것은 단지 이런 신성한 실체가, 그 실존의 근원, 즉 모든 실존의 인격적 근원이신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에야 끝난다.

인간의 생명이 지속됨은--곧 생존은--, 그 생명이, 우주 기능, 즉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제를 지녔기 때문이다. 신앙으로_활성화된 사람의 혼은, 이런 운명의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멈출 수 없으며; 일단 이런 신성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그 혼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수 없다.

영적 진화는 선함을 점점 더 자진해서 선택하는 체험이며, 악의 가능성이 똑같이 점진적으로

132:3.3 (1459.3) Man tends to crystallize science, formulate philosophy, and dogmatize truth because he is mentally lazy in adjusting to the progressive struggles of living, while he is also terribly afraid of the unknown. Natural man is slow to initiate changes in his habits of thinking and in his techniques of living.

132:3.4 (1459.4) Revealed truth, personally discovered truth, is the supreme delight of the human soul; it is the joint creation of the material mind and the indwelling spirit. The eternal salvation of this truth-discerning and beauty-loving soul is assured by that hunger and thirst for goodness which leads this mortal to develop a singleness of purpose to do the Father's will, to find God and to become like him. There is never conflict between true knowledge and truth.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knowledge and human beliefs, beliefs colored with prejudice, distorted by fear, and dominated by the dread of facing new facts of material discovery or spiritual progress.

132:3.5 (1459.5) But truth can never become man's possession without the exercise of faith. This is true because man's thoughts, wisdom, ethics, and ideals will never rise higher than his faith, his sublime hope. And all such true faith is predicated on profound reflection, sincere self-criticism, and uncompromising moral consciousness. Faith is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ized creative imagination.

132:3.6 (1459.6) Faith acts to release the superhuman activities of the divine spark, the immortal germ, that lives within the mind of man, and which is the potential of eternal survival. Plants and animals survive in time by the technique of passing o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dentical particles of themselves. The human soul (personality) of man survives mortal death by identity association with this indwelling spark of divinity, which is immortal, and which functions to perpetuate the human personality upon a continuing and higher level of progressive universe existence. The concealed seed of the human soul is an immortal spirit.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soul is the first of a succession of personality manifestations of spiritual and progressing existences, terminating only when this divine entity attains the source of its existence, the personal source of all existence, God, the Universal Father.

132:3.7 (1459.7) Human life continues — survives — because it has a universe function, the task of finding God. The faith-activated soul of man cannot stop short of the attainment of this goal of destiny; and when it does once achieve this divine goal, it can never end because it has become like God — eternal.

132:3.8 (1460.1) Spiritual evolution is an experience of the increasing and voluntary choice of goodness

감소되는 일이 뒤따른다. 선함을 선택하는 것이 완결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면,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완전하게 되며, 이 두 가지의 의(義)가, 심지어 잠재적 악 개념이 솟아날 가능성조차 영원히 금지시킨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혼은, 신성한 선함이라는 그런 높은 영 수준에서 작용할 때, 의심스런 어떤 악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다.

사람의 정신 속에 **낙원** 영이 현존하심은, **만유의 아버지**의 불멸적이고 내주하는 이 영 단편과 동일성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모든 혼에게, 신성하게 진보함으로 영원히 실존하는 것을 계시하는 약속이요 신앙의 서약이다.

우주에서 진보하는 것은 인격의 해방을 증대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진보가 점점 높아지는 수준에서 자아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아 억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영적 자아 억제에 도달하는 것은, 우주에서 해방되고 개인의 자유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런 광대한 우주에서 사람이 초기에 적응하는 혼란의 와중에서, 신앙은 혼을 양육하고 유지하며, 한편 기도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인한 다양한 영감(靈感), 그리고 내주하는 관련된 신성한 현존의 영적 이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혼의 신앙 충동,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통합시키게 된다.

나본은, **예수**와 대화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에 매우 감명 받았다. 이 진리는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타올랐고, 그는 나중에 도착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4. 개인적인 사역

예수는 **로마**에 있는 동안, 도래하는 천국의 장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여가시간 전체를 소비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수집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수많은 인간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 즉 그는, 육신 속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알고 싶었고, 또한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고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행하려고 애썼다. 이런 시절 동안 그의 종교 교훈은, 열두 제자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대중(大衆)의 설교자로서 후반기 생애의 특징을 이룬 교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의 요지는 항상: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이요, 그의 자비가 진리라는 것과 함께,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신앙_아들이라

attended by an equal and progressive diminution of the possibility of evil. With the attainment of finality of choice for goodness and of completed capacity for truth appreciation, there comes into existence a perfection of beauty and holiness whose righteousness eternally inhibits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even the concept of potential evil. Such a God-knowing soul casts no shadow of doubting evil when functioning on such a high spirit level of divine goodness.

132:3.9 (1460.2)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spirit in the mind of man constitutes the revelation promise and the faith pledge of an eternal existence of divine progression for every soul seeking to achieve identity with this immortal and indwelling spirit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132:3.10 (1460.3) Universe progress i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personality freedom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ve attainment of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elf-understanding and consequent voluntary self-restraint. The attainment of perfection of spiritual self-restraint equals completeness of universe freedom and personal liberty. Faith fosters and maintains man's soul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of his early orientation in such a vast universe, whereas prayer becomes the great unifier of the various inspirations of the creative imagination and the faith urges of a soul trying to identify itself with the spirit ideals of the indwelling and associated divine presence.

132:3.11 (1460.4) Nabon was greatly impressed by these words, as he was by each of his talks with Jesus. These truths continued to burn within his heart, and he was of great assistance to the later arriving preachers of Jesus' gospel.

4. PERSONAL MINISTRY

132:4.1 (1460.5) Jesus did not devote all his leisure while in Rome to this work of preparing men and women to become future disciples in the oncoming kingdom. He spent much time gaining an intimate knowledge of all races and classes of men who lived in this, the largest and most cosmopolitan city of the world. In each of these numerous human contacts Jesus had a double purpose: He desired to learn their reactions to the life they were living in the flesh, and he was also minded to say or do something to make that life richer and more worth while. His religious teachings during these weeks were no different than those which characterized his later life as teacher of the twelve and preacher to the multitudes.

132:4.2 (1460.6) Always the burden of his message was: the fact of the heavenly Father's love and the truth of his mercy, coupled with the good news that

는 기쁜 소식이었다. 사회적으로 접촉할 때 **예수**의 통상적 방식은,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면담은 흔히, 그가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시작됐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함으로써 끝나곤 했다. 그는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가르치는 데 똑같이 노련했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사람에게, 가장 적게 말했다. 그의 개인 사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걱정 많은, 그리고 낙심한 필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동정심 많고 이해심 많은 이 사람에게, 자기 혼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예수**에게 털어놓았을 때, **예수**는, 그들의 실제 어려움을 앞으로 풀어 나갈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항상 해 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평안과 당장의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난 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식을,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곤 했다.

예수는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 영역에 있는 거의 500명 이상의 필사자와, 애정 넘치고 정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만남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여러 인종에 대한 지식을 획득했다. 그는 자신의 지상 생애 가운데 비슷한 어떤 기간 중에서도, 이 6개월을 가장 귀중하고 견문을 넓힌 시기 가운데 하나로 늘 간주했다.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능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은 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더 흔히 어떤 교육 계획사업이나 사회 개혁 또는 종교 운동을 위하여 그가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 제의가 열두 번 이상 들어왔고, 그는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말로 또는 친절한 봉사를 통해서, 영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상을 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예수**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인지 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정치와 정치적 수완에 관해서 **로마**의 어떤 원로원 의원과 이야기했고, **예수**와 이렇게 한번 만남으로 이 입법부 의원은 크게 감명 받았으며, 그는 정부가 국민을 후원하고 부양하는 관념에서 국민이 정부를 후원하는 개념으로 통치 제도 방침을 바꾸도록 동료들을 유도하려고, 여생 동안 헛되게 노력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이야기하면서 하루 저녁을 보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사람은, 다음 날 117명의 자기 노예에게 자유를 줬다. **예수**는 저녁 식사에서 어느 **그리스인**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환자들이 육체 외에도 정신과 혼을 지녔음을 말해줬고, 그리하여 이

man is a faith-son of this same God of love. Jesus' usual technique of social contact was to draw people out and into talking with him by asking them questions. The interview would usually begin by his asking them questions and end by their asking him questions. He was equally adept in teaching by either asking or answering questions. As a rule, to those he taught the most, he said the least. Those who derived most benefit from his personal ministry were overburdened, anxious, and dejected mortals who gained much relief because of the opportunity to unburden their souls to a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listener, and he was all that and more. And when these maladjusted human beings had told Jesus about their troubles, always was he able to offer practical and immediately helpful suggestions looking toward the correction of their real difficulties, albeit he did not neglect to speak words of present comfort and immediate consolation. And invariably would he tell these distressed mortals about the love of God and impart the information, by various and sundry methods, that they were the children of this loving Father in heaven.

132:4.3 (1461.1) In this manner, during the sojourn in Rome, Jesus personally came into affectionate and uplifting contact with upward of five hundred mortals of the realm. He thus gained a knowledge of the different races of mankind which he could never have acquired in Jerusalem and hardly even in Alexandria. He always regarded this six months as one of the richest and most informative of any like period of his earth life.

132:4.4 (1461.2) As might have been expected, such a versatile and aggressive man could not thus function for six months in the world's metropolis without being approached by numerous persons who desired to secure his services in connection with some business or, more often, for some project of teaching, social reform, or religious movement. More than a dozen such proffers were made, and he utilized each one as an opportunity for imparting some thought of spiritual ennoblement by well-chosen words or by some obliging service. Jesus was very fond of doing things — even little things — for all sorts of people.

132:4.5 (1461.3) He talked with a Roman senator on politics and statesmanship, and this one contact with Jesus made such an impression on this legislator that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vainly trying to induce his colleagues to change the course of the ruling policy from the idea of the government supporting and feeding the people to that of the people supporting the government. Jesus spent one evening with a wealthy slaveholder, talked about man as a son of God, and the next day this man, Claudius, gave freedom to one hundred and seventeen slaves. He visited at dinner with a Greek physician, telling him that his patients had minds and souls as well as

유능한 의사는, 동료에게 더 광범하게 봉사하려고 애쓰게 됐다. 그는 모든 계층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그가 **로마**에서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는 공중목욕탕이었다. 난잡한 성{性} 행위가 거기서 유행했으므로, 그는 목욕탕에 친구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다.

로마 군인에게는, 함께 **티베르** 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순뿐만 아니라 마음도 용감해라. 담대하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해라. 네가 상관들에게 복종하듯이, 네 낮은 본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본성에 복종하게 해라. 선함을 공경하고 진리를 강화시키기 바란다. 추한 것 대신 아름다운 것을 택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니, 네 동료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공개토론회 연사{演士}에게 말했다: “네 웅변술은 만족할만하고, 네 논리는 감탄할만하며, 네 목소리는 듣기에 아름답지만, 네 가르침은 조금도 진실하지 못하다. 네가, 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감 어린 만족감을 누릴 수만 있다면, 너는 동료를 어두움의 속박과 무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에 네 연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그의 후계자가 됐던 **마르코스**였다. 그들이 **시몬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도전하고 새 복음 전파하기를 담대하게 계속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는 누명을 쓴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서,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얻은 후,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공의가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질수록, 가장 미친한 시민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더욱 애써야만 할 것이다. 단지 돈과 세력 있는 자들에게만 법정에서 공의를 보장하려는 나라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죄지은 자를 벌주는 것뿐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관의 신성시되는 의무다. 법정의 공명정대, 공정성, 및 완전성 위에, 한 나라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다. 진정한 종교가 자비 위에 세워지듯이, 시민 정부는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 재판관을 그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었고, 증거를 면밀히 검사한 후에 죄수를 석방했다. 개인으로서 사역한 이 기간에, **예수**의 전체 활동 중에서 이 사건이 공개적 양상에 가장 가까웠다.

5. 부자에게 준 충고

금욕주의자이며 **로마** 시민인 어떤 부자가, **안가몬**의 소개로, **예수**의 가르침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됐다. 여러 번 친숙한 회담이 있던 후에, 이 부자는 **예수**에게, 그가 만일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고 물었으며, **예수**가

bodies, and thus led this able doctor to attempt a more far-reaching ministry to his fellow men. He talked with all sorts of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The only place in Rome he did not visit was the public baths. He refused to accompany his friends to the baths because of the sex promiscuity which there prevailed.

132:4.6 (1461.4) To a Roman soldier, as they walked along the Tiber, he said: “Be brave of heart as well as of hand. Dare to do justice and be big enough to show mercy. Compel your lower nature to obey your higher nature as you obey your superiors. Revere goodness and exalt truth. Choose the beautiful in place of the ugly. Love your fellows and reach out for God with a whole heart, for God is your Father in heaven.”

132:4.7 (1461.5) To the speaker at the forum he said: “Your eloquence is pleasing, your logic is admirable, your voice is pleasant, but your teaching is hardly true. If you could only enjoy the inspiring satisfaction of knowing God as your spiritual Father, then you might employ your powers of speech to liberate your fellows from the bondage of darkness and from the slavery of ignorance.” This was the Marcus who heard Peter preach in Rome and became his successor. When they crucified Simon Peter, it was this man who defied the Roman persecutors and boldly continued to preach the new gospel.

132:4.8 (1462.1) Meeting a poor man who had been falsely accused, Jesus went with him before the magistrate and, having been granted special permission to appear in his behalf, made that superb address in the course of which he said: “Justice makes a nation great, and the greater a nation the more solicitous will it be to see that injustice shall not befall even its most humble citizen. Woe upon any nation when only those who possess money and influence can secure ready justice before its courts! It is the sacred duty of a magistrate to acquit the innocent as well as to punish the guilty. Upon the impartiality, fairness, and integrity of its courts the endurance of a nation depends. Civil government is founded on justice, even as true religion is founded on mercy.” The judge reopened the case, and when the evidence had been sifted, he discharged the prisoner. Of all Jesus’ activities during these days of personal ministry, this came the nearest to being a public appearance.

5. COUNSELING THE RICH MAN

132:5.1 (1462.2) A certain rich man, a Roman citizen and a Stoic,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Jesus’ teaching, having been introduced by Angamon. After many intimate conferences this wealthy citizen asked Jesus what he would do with wealth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영적 봉사, 지적 삶의 풍요나 사회생활의 고상함 또는 영적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듯이, 물질 재산은 물질 생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음 세대와 그 후에 계속되는 후손의 이익과 고상함을 위해서 쓰일 자원을 책임진, 한 세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신탁인(信託人)의 자격으로 물질 재산을 경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예수**의 대답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나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눠줘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람에 대한 그의 의무에 관한 진리를, 그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음을 느낀 **예수**는 추가해서 대답했다: “착한 친구여, 나는 네가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고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네게 재산에 대한 책임 이행과 관련된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함은, 네가 내게 조언을 요청했기 때문이며, 이 충고를 주면서, 다른 부자들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직 네게, 그리고 네 개인적 지침이 되도록 충고한다. 네가 진정으로 네 재산을 신탁물로 여기기 원한다면, 즉 네가 축적된 재산에 대해, 현명하고 유능한 청지기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네 재물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조언하고자 한다: 이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 정직한 대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해라. 너의 많은 재산의 출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물질 재산 축적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1. 상속된 재산 --부모나 다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

“ 2. 발견된 재산 --본래의 땅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얻은 재물.

“ 3. 거래 재산 --물질 상품의 물물교환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얻은 재물.

“ 4. 부당한 재산 --부당한 착취 또는 동료를 노예화함으로써 얻은 재물.

“ 5. 이자 재산 --투자한 자본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익 가능성에서 얻은 수입.

“ 6. 특별재능의 재산 --사람의 정신 속에 타고난 창조적이고 발명하는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재물.

“ 7. 우연히 얻은 재산 --동료의 관대함에서 도출되거나 삶의 환경에서 기원된 재물.

“ 8. 훔친 재산 --부당함, 부정직, 도둑질, 혹은

if he had it, and Jesus answered him: “I would bestow material wealth for the enhancement of material life, even as I would minister knowledge, wisdom, and spiritual service for the enrichment of the intellectual life, the ennoblement of the social life, and the advancement of the spiritual life. I would administer material wealth as a wise and effective trustee of the resources of one generation for the benefit and ennoblement of the next and succeeding generations.”

132:5.2 (1462.3) But the rich man was not fully satisfied with Jesus' answer. He made bold to ask again: “But what do you think a man in my position should do with his wealth? Should I keep it, or should I give it away?” And when Jesus perceived that he really desired to know more of the truth about his loyalty to God and his duty to men, he further answered: “My good friend, I discern that you are a sincere seeker after wisdom and an honest lover of truth; therefore am I minded to lay before you my view of the solution of your problems having to do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wealth. I do this because you have asked for my counsel, and in giving you this advice, I am not concerned with the wealth of any other rich man; I am offering advice only to you and for your personal guidance. If you honestly desire to regard your wealth as a trust, if you really wish to become a wise and efficient steward of your accumulated wealth, then would I counsel you to make the following analysis of the sources of your riches: Ask yourself, and do your best to find the honest answer, whence came this wealth? And as a help in the study of the sources of your great fortune, I would suggest that you bear in mind the following ten different methods of amassing material wealth:

132:5.3 (1462.4) “1. Inherited wealth — riches derived from parents and other ancestors.

132:5.4 (1462.5) “2. Discovered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uncultivated resources of mother earth.

132:5.5 (1462.6) “3. Trade wealth — riches obtained as a fair profit in the exchange and barter of material goods.

132:5.6 (1462.7) “4. Unfair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unfair exploitation or the enslavement of one's fellows.

132:5.7 (1463.1) “5. Interest wealth — income derived from the fair and just earning possibilities of invested capital.

132:5.8 (1463.2) “6. Genius wealth — riches accruing from the rewards of the creative and inventive endowments of the human mind.

132:5.9 (1463.3) “7. Accidental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generosity of one's fellows or taking origin in the circumstances of life.

132:5.10 (1463.4) “8. Stolen wealth — riches secured

사기로 확보한 재물.

“9. 신탁된 자금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특정한 사용을 위해, 네 동료가 네게 맡긴 재산.

“10. 벌어서 모은 재산 --너 자신의 노동, 즉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여 네가 직접 매일 수고한 것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수로 직접 얻은 재물.

“그러므로, 내 친구여, 네가 만일 너의 많은 재산에 대한 신실하고 의로운 청지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재산을 대략 이런 열 가지 부문으로 나뉘야 하며, 그다음에, 공의, 공평, 공정성,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법칙을 현명하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각 부문을 처리하도록 진행하며; 그럼에도 네가 가끔 확실치 않은 상황에 처해서, 인간사{人間事}의 불행한 환경 아래 고통 받는 희생자의 괴로움을 도와주면서, 자비롭고 이타적인 배려를 하는 중에 실수를 범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질 상황의 공평함과 공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궁핍한자에게 유리하고 불행으로 부당하게 고생을 겪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한 후, 그 부자가 좀 더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가르침을 간청한 것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부연해서 충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재산에 대한 너의 태도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제안하면서, 내 조언을 단지 네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너 개인의 지침으로만 받아들이 것을 강조한다. 질문하는 친구인 너에게 나는 오직 내 생각을 말할 뿐이다. 다른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 나는 네게 이렇게 충고하고자 한다:

“1. 너는 상속된 재산의 청지기로서 그 근원을 살펴야 한다. 너는 정당한 재산에 대해 현 세대의 이득을 위한 공정한 몫을 제한 후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과거의 세대들을 대표하는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네 조상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내포된 어떤 부정직함이든지, 또는 어떤 불의함이든지,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 사기{詐欺}나 부당함을 통해서 얻었다고 밝혀진, 네게 상속된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너는 공의와 관대함, 그리고 배상에 대한 네 신념에 의거해서 배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상속된 네 나머지 재산은 네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신탁자로서 안전하게 전할 수 있다. 네 후손에게 재물을 전할 때, 현명한 식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이 네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

“2. 발견한 결과로 부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한 개인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

by unfairness, dishonesty, theft, or fraud.

132:5.11 (1463.5) “9. Trust funds — wealth lodged in your hands by your fellows for some specific use, now or in the future.

132:5.12 (1463.6) “10. Earned wealth — riches derived directly from your own personal labor, the fair and just reward of your own daily efforts of mind and body.

132:5.13 (1463.7) “And so, my friend, if you would be a faithful and just steward of your large fortune, before God and in service to men, you must approximately divide your wealth into these ten grand divisions, and then proceed to administer each 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wise and honest interpretation of the laws of justice, equity, fairness, and true efficiency; albeit, the God of heaven would not condemn you if sometimes you erred, in doubtful situations, on the side of merciful and unselfish regard for the distress of the suffering victims of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mortal life. When in honest doubt about the equity and justice of material situations, let your decisions favor those who are in need, favor those who suffer the misfortune of undeserved hardships.”

132:5.14 (1463.8) After discussing these matters for several hours and in response to the rich man's request for further and more detailed instruction, Jesus went on to amplify his advice, in substance saying: “While I offer further suggestions concerning your attitude toward wealth, I would admonish you to receive my counsel as given only to you and for your personal guidance. I speak only for myself and to you as an inquiring friend. I adjure you not to become a dictator as to how other rich men shall regard their wealth. I would advise you:

132:5.15 (1463.9) “1. As steward of inherited wealth you should consider its sources. You are under moral obligation to represent the past generation in the honest transmittal of legitimate wealth to succeeding generations after subtracting a fair toll for the benefit of the present generation. But you are not obligated to perpetuate any dishonesty or injustice involved in the unfair accumulation of wealth by your ancestors. Any portion of your inherited wealth which turns out to have been derived through fraud or unfairness, you may disburse in accordance with your convictions of justice, generosity, and restitution. The remainder of your legitimate inherited wealth you may use in equity and transmit in security as the trustee of one generation for another. Wise discrimination and sound judgment should dictate your decisions regarding the bequest of riches to your successors.

132:5.16 (1463.10) “2. Everyone who enjoys wealth as a result of discovery should remember that one

뿐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런 발견을 그들과 나눠 갖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발견한 자의 수고에 대한 대가{代價}가 무시돼서도 안 되지만, 또한 자연의 숨겨진 비축된 자원에서 유래한 모든 이익과 축복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이기적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

“3. 사람들이 세계의 상업을 위해서 무역이나 물물교환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모든 무역업자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상인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의 조직화된 상업에서, 정당한 무역과 동료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익금을 창출하며, 이런 모든 재산의 근원을, 공의, 정직, 및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원칙으로 관별해야 한다. 정직한 무역업자는,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동료 무역업자들과 기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똑같은 이익을 남기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재산은, 큰 규모의 상업거래로 얻었을 때 개인이 번 소득과 동일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런 정직하게 축적된 재산은, 나중에 그 분배에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4. **하나님**을 알고 신성한 뜻 행하기를 원하는 필사자라면, 누구도 돈으로 남을 억압할 만큼 타락하지 못할 것이다. 숭고한 사람이라면, 육신의 형제를 노예화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함으로써 재물을 축적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이나 권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억압받는 필사적 사람의 땀으로 부를 얻었을 때, 부는 도덕적 저주와 영적인 오점이 된다. 그런 모든 재산은, 그런 식으로 빼앗긴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 반환돼야 한다. 지속적인 문명은, 고용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습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다.

“5. 정당한 재산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이 빌리고 빌려주는 한,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이자는 합법적인 재산이다. 이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네 원금을 정화{淨化}시켜라. 너무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져서 고리대금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쪼들리고 있는 동료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결코 얻지 않도록 해라.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네 형제에게서 폭리를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6. 네가 일련의 특별재능으로 우연히 든든한 재산을 얻었다면, 즉 발명하는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네 재산이 주어졌다면, 그런 보상에 대해 부당한 몫을 주장하지 마라. 특별재능은 조상과 후손 양쪽에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종족, 국가, 그리고 그 독창적 발견을 가능하게

individual can live on earth but a short season and should, therefore, make adequate provision for the sharing of these discoveries in helpful ways by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his fellow men. While the discoverer should not be denied all reward for efforts of discovery, neither should he selfishly presume to lay claim to all of the advantages and blessings to be derived from the uncovering of nature's hoarded resources.

132:5.17 (1464.1) “3. As long as men choose to conduct the world's business by trade and barter, they are entitled to a fair and legitimate profit. Every tradesman deserves wages for his services; the merchant is entitled to his hire. The fairness of trade and the honest treatment accorded one's fellows in the organized business of the world create many different sorts of profit wealth, and all these sources of wealth must be judged by the highest principles of justice, honesty, and fairness. The honest trader should not hesitate to take the same profit which he would gladly accord his fellow trader in a similar transaction. While this sort of wealth is not identical with individually earned income when business dealings are conducted on a large scale, at the same time, such honestly accumulated wealth endows its possessor with a considerable equity as regards a voice in its subsequent distribution.

132:5.18 (1464.2) “4. No mortal who knows God and seeks to do the divine will can stoop to engage in the oppressions of wealth. No noble man will strive to accumulate riches and amass wealth-power by the enslavement or unfair exploitation of his brothers in the flesh. Riches are a moral curse and a spiritual stigma when they are derived from the sweat of oppressed mortal man. All such wealth should be restored to those who have thus been robbed or to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An enduring civilization cannot be built upon the practice of defrauding the laborer of his hire.

132:5.19 (1464.3) “5. Honest wealth is entitled to interest. As long as men borrow and lend, that which is fair interest may be collected provided the capital lent was legitimate wealth. First cleanse your capital before you lay claim to the interest. Do not become so small and grasping that you would stoop to the practice of usury. Never permit yourself to be so selfish as to employ money-power to gain unfair advantage over your struggling fellows. Yield not to the temptation to take usury from your brother in financial distress.

132:5.20 (1464.4) “6. If you chance to secure wealth by flights of genius, if your riches are derived from the rewards of inventive endowment, do not lay claim to an unfair portion of such rewards. The genius owes something to both his ancestors and his progeny; likewise is he under obligation to the

한 환경의 혜택도 받은 것이며; 자기가 수고해서 발명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룩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모든 재산 증식의 근원인 특별재능을 박탈하는 것도, 똑같이 불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호감을 줄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을 세우기란,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너는 먼저 사람들이 네 형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상대방을 네 의도대로 시키려는 것처럼, 너도 그의 의도대로 그에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정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바르고 치우치지 않도록, 공의, 정직, 및 공정성이라는 평범한 명령이 너를 안내할 것이다.

“ 7. 경영을 통해서 획득한 바르고 정당한 보수를 제외하고, 반복된 행운으로 인해 자기 손에 떨어진 재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개인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얻은 재산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 또는 경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신탁물이라는 입장에서 간주돼야 한다. 그런 재산을 소유한 자는, 노력 없이 얻은 자원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도록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私的)인 소유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 8. 네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기(詐欺) 행위에서 왔음을 알게 된다면; 네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부정직한 일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네 재산이 네 동료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말미암은 산물이라면, 그릇되게 얻은 이런 모든 소득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주인에게 서둘러 반환해라. 완전한 보상(報償)을 통해서, 네 모든 부정직한 재산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 9.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일에는, 중대하고 신성시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신용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정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量)만, 그 신탁금에서 네 몫으로 취하라.

“ 10. 네 재산 중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으로 얻은 것임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그 일이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되었다면-- 진정한 네 소유다. 그런 재산을 간직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네가 행사하면서, 네가 보기에 그것이 네 동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예수가 그에게 충고를 끝내자, 이 부유한 **로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기 위해 작별 인사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선하신 친구여, 나는 당신이 위대한 지혜와 선함을 지닌 분임을 깨달았고, 내일부터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경영을 당신의 조언에 따라서 시작할 것입니다.”

6. 사회적인 사역

이곳 **로마**에서, 한 우주의 **창조주**가, 길 잃은

race, nation, and circumstances of his inventive discoveries; he should also remember that it was as man among men that he labored and wrought out his inventions. It would be equally unjust to deprive the genius of all his increment of wealth. And it will ever be impossible for men to establish rul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equally to all these problems of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You must first recognize man as your brother, and if you honestly desire to do by him as you would have him do by you, the commonplace dictates of justice, honesty, and fairness will guide you in the just and impartial settlement of every recurring problem of economic rewards and social justice.

132:5.21 (1464.5) “7. Except for the just and legitimate fees earned in administration, no man should lay personal claim to that wealth which time and chance may cause to fall into his hands. Accidental riches should be regarded somewhat in the light of a trust to be expended for the benefit of one's social or economic group. The possessors of such wealth should be accorded the major voic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wis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such unearned resources. Civilized man will not always look upon all that he controls as his personal and private possession.

132:5.22 (1465.1) “8. If any portion of your fortune has been knowingly derived from fraud; if aught of your wealth has been accumulated by dishonest practices or unfair methods; if your riches are the product of unjust dealings with your fellows, make haste to restore all these ill-gotten gains to the rightful owners. Make full amends and thus cleanse your fortune of all dishonest riches.

132:5.23 (1465.2) “9. The trusteeship of the wealth of one person for the benefit of others is a solemn and sacred responsibility. Do not hazard or jeopardize such a trust. Take for yourself of any trust only that which all honest men would allow.

132:5.24 (1465.3) “10. That part of your fortune which represents the earnings of your own mental and physical efforts — if your work has been done in fairness and equity — is truly your own. No man can gainsay your right to hold and use such wealth as you may see fit provided your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work harm upon your fellows.”

132:5.25 (1465.4) When Jesus had finished counseling him, this wealthy Roman arose from his couch and, in saying farewell for the night, delivered himself of this promise: “My good friend, I perceive you are a man of great wisdom and goodness, and tomorrow I will begin the administration of all my wealth in accordance with your counsel.”

6. SOCIAL MINISTRY

132:6.1 (1465.5) Here in Rome also occurred that

어떤 아이를 걱정하던 어머니에게 돌려주느라, 몇 시간 지체했던 감동스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아이는 집으로부터 먼 곳까지 방황했고, 집에 질려서 우는 아이를 **예수**가 발견했다. 그와 **가니드**는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지만, 아이의 집을 찾아 주기에 전념했다. **가니드**는 **예수**의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가니드**야, 대부분의 인간은 길 잃은 이 아이와 같다. 이 아이가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듯이, 사람들은 안전함과 보호를 바로 지척에 두고도, 긴 시간 두려움에 울고 슬픔으로 고통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확신을 누리면서 진리의 길을 아는 모든 자는, 삶의 만족감을 찾아 해매는 동료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만족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생 동안, **가니드**는 길 잃은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낼까 하여, 줄곧 아이들을 주의하여 관찰했다.

사고로 남편을 잃고, 다섯 아이와 함께 사는 과부가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것에 대해 **가니드**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계속 위로하는 동안, **가니드**는 음식과 옷을 제공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청했다. 그들은 가장 나이 많은 소년에게 직장을 구해줌으로써 그가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고노드**는 이 체험담을 듣다가, **예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아들을 학자나 사업가로 키우려 하는데,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철학자나 자선가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러자 **예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우리는 당신이 말한 그 네 가지 전부를 그가 성취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귀가 한 가지 음색 대신 네 가지 음색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삶 속에서 네 배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고노드**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후손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책이 아니라-- 내 사명은 이 세대와 다른 모든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이라고 대답하다가, **가니드**에게, “얘야, 이제 잘 시간이라”고 하면서, 말을 중단했다.

7. 로마를 두루 여행함

예수와 **고노드**와 **가니드**는, **로마**를 떠나 변방 지역에 있는 흥미로운 곳들로, 다섯 차례 여행했다. 북부 **이태리**에 있는 호수를 방문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예수**는 **가니드**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호수

touching incident in which the Creator of a universe spent several hours restoring a lost child to his anxious mother. This little boy had wandered away from his home, and Jesus found him crying in distress. He and Ganid were on their way to the libraries, but they devoted themselves to getting the child back home. Ganid never forgot Jesus' comment: “You know, Ganid, most human beings are like the lost child. They spend much of their time crying in fear and suffering in sorrow when, in very truth, they are but a short distance from safety and security, even as this child was only a little way from home. And all those who know the way of truth and enjoy the assurance of knowing God should esteem it a privilege, not a duty, to offer guidance to their fellows in their efforts to find the satisfactions of living. Did we not supremely enjoy this ministry of restoring the child to his mother? So do those who lead men to God experience the supreme satisfaction of human service.” And from that day forward, for the remainder of his natural life, Ganid was continually on the lookout for lost children whom he might restore to their homes.

132:6.2 (1465.6) There was the widow with five children whose husband had been accidentally killed. Jesus told Ganid about the loss of his own father by an accident, and they went repeatedly to comfort this mother and her children, while Ganid sought money from his father to provide food and clothing. They did not cease their efforts until they had found a position for the eldest boy so that he could help in the care of the family.

132:6.3 (1465.7) That night, as Gonod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ese experiences, he said to Jesus, good-naturedly: “I propose to make a scholar or a businessman of my son, and now you start out to make a philosopher or philanthropist of him.” And Jesus smilingly replied: “Perhaps we will make him all four; then can he enjoy a fourfold satisfaction in life as his ear for the recognition of human melody will be able to recognize four tones instead of one.” Then said Gonod: “I perceive that you really are a philosopher. You must write a book for future generations.” And Jesus replied: “Not a book — my mission is to live a life in this generation and for all generations. I — “ but he stopped, saying to Ganid, “My son, it is time to retire.”

7. TRIPS ABOUT ROME

132:7.1 (1466.1) Jesus, Gonod, and Ganid made five trips away from Rome to points of interest in the surrounding territory. On their visit to the northern Italian lakes Jesus had the long talk with Ganid concerning the impossibility of teaching a man about God if the man does not desire to know God. They had casually met a thoughtless pagan

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경솔한 한 이방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평소와는 달리,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토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니드**는 의아해 했다. **가니드**가 선생에게 왜 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가 대답했다:

“**가니드**야, 그 사람은 진리에 굶주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도움을 청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눈은 혼을 위한 빛을 얻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저 사람은 구원의 추수에 해당될 만큼 무르익지 않았으며; 지혜와 더 높은 깨달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준비시킬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는, 그를 우리와 함께 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에 매료되어, 그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 부득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그분을 보여 줄 수 없으며; 원치 않는 혼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 사람은 삶을 체험한 결과로 진리를 갈망해야 하며, 또는, 다른 인간이 그런 동료 필사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 전에, 그 신성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의 삶과 접촉한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업무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자신을 계시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루 중일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산 위에서였다. **가니드**는 **예수**에게 **부다**에 관해 여러 번 직접 질문했지만, 항상 다소 회피적인 대답을 들었다. 이제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부다**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했는데, 바로 대답을 듣게 됐다. **고노드**가, “나는 당신이 **부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가 아는 **부다**는 **불교**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부다**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민족에게는 선지자 같았지만, 고아{孤兒} 선지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일찍이 영적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그의 체험은 비극이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자{使者}처럼 살아가고 가르치려 노력했다. **부다**는 구원의 배를 안전한 항구의 문턱, 즉 필사자 구원의 안식처를 향한 입구까지 안내했으나, 바로 거기서, 잘못된 항해지도 때문에, 그 훌륭한 배는 좌초됐다. 그것은 지나간 여러 세대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거의 희망을 잃고 거기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너희 민족 중에서 다수는 그 세월 내내 거기 머물렀다. 그들은 안식하는 안전한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만, 훌륭한 **부다**의 고상한 배가 항구 바로 밖에서 가라앉는 불행을

while on their journey up to the lakes, and Ganid was surprised that Jesus did not follow out his usual practice of enlisting the man in conversation which would naturally lead up to the discussion of spiritual questions. When Ganid asked his teacher why he evinced so little interest in this pagan, Jesus answered:

132:7.2 (1466.2) “Ganid, the man was not hungry for truth. He was not dissatisfied with himself. He was not ready to ask for help, and the eyes of his mind were not open to receive light for the soul. That man was not ripe for the harvest of salvation; he must be allowed more time for the trials and difficulties of life to prepare him for the reception of wisdom and higher learning. Or, if we could have him live with us, we might by our lives show him the Father in heaven, and thus would he become so attracted by our lives as sons of God that he would be constrained to inquire about our Father. You cannot reveal God to those who do not seek for him; you cannot lead unwilling souls into the joys of salvation. Man must become hungry for truth as a result of the experiences of living, or he must desire to know God as the result of contact with the lives of those who are acquainted with the divine Father before another human being can act as the means of leading such a fellow mortal to the Father in heaven. If we know God, our real business on earth is so to live as to permit the Father to reveal himself in our lives, and thus will all God-seeking persons see the Father and ask for our help in finding out more about the God who in this manner finds expression in our lives.”

132:7.3 (1466.3) It was on the visit to Switzerland, up in the mountains, that Jesus had an all-day talk with both father and son about Buddhism. Many times Ganid had asked Jesus direct questions about Buddha, but he had always received more or less evasive replies. Now, in the presence of the son, the father asked Jesus a direct question about Buddha, and he received a direct reply. Said Gonod: “I would really like to know what you think of Buddha.” And Jesus answered:

132:7.4 (1466.4) “Your Buddha was much better than your Buddhism. Buddha was a great man, even a prophet to his people, but he was an orphan prophet; by that I mean that he early lost sight of his spiritual Father, the Father in heaven. His experience was tragic. He tried to live and teach as a messenger of God, but without God. Buddha guided his ship of salvation right up to the safe harbor, right up to the entrance to the haven of mortal salvation, and there, because of faulty charts of navigation, the good ship ran aground. There it has rested these many generations, motionless and almost hopelessly stranded. And thereon have many of your people remained all these years. They live within hailing distance of the safe waters of rest, but they refuse to enter

당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불교신자**는, 그들의 선지자의 철학적인 배를 포기하고, 그의 고상한 정신을 붙들지 않는 한, 이 항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민족이 **부다**의 정신에 진실하게 머물렀다면, 너희는 영(靈)의 고요함과 혼(魂)의 안식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피난처에 오래 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고노드야**, **부다**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신 속에서 그를 분명히 발견하기에는 실패했으며; **유대인**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영으로 그를 알기에는 크게 실패했음을 너는 알 것이다. 오늘날, **불교신자**는 **하나님** 없는 철학 속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반면, 내 민족은 가련하게도 생명과 자유의 구원하는 철학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돼있다. 너희는 **하나님** 없는 철학을 지녔으며; **유대인**은 **하나님**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삶의 철학은 거의 없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한 **부다**는, 종교가 인류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도덕적 에너지와 영적 추진력을 그의 가르침 속에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가니드**가 외쳤다: “**선생님**, **인도**를 위해 충분히 훌륭하고 **로마**를 위해서도 충분히 거창한 새 종교를 우리가 만들지요, 그러면 아마 **아웨**를 대신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가니드야**, 종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동료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예언적 말씀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가니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나는 가끔 **예수**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지 졸음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날 이후, **가니드**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종교를 발전시키기를 계속했다. **예수**의 편견 없는 마음과 공정함과 아량에, 그는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모든 토론 속에서, 이 젊은이는 분노의 감정이나 적대심의 반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이 **인도인** 청년이 우주의 **창조주**에게 새 종교를 만들자고 제의하는 광경이, 주시하던 천상의 지성체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한 구경거리였는지! 그리고 비록 이 젊은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새롭고 영존하는 종교를--곧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그때 거기서 만들고 있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행하고 있었다. 그리

because the noble craft of the good Buddha met the misfortune of grounding just outside the harbor. And the Buddhist peoples never will enter this harbor unless they abandon the philosophic craft of their prophet and seize upon his noble spirit. Had your people remained true to the spirit of Buddha, you would have long since entered your haven of spirit tranquillity, soul rest, and assurance of salvation.

132:7.5 (1467.1) “You see, Gonod, Buddha knew God in spirit but failed clearly to discover him in mind; the Jews discovered God in mind but largely failed to know him in spirit. Today, the Buddhists flounder about in a philosophy without God, while my people are piteously enslaved to the fear of a God without a saving philosophy of life and liberty. You have a philosophy without a God; the Jews have a God but are largely without a philosophy of living as related thereto. Buddha, failing to envision God as a spirit and as a Father, failed to provide in his teaching the moral energy and the spiritual driving power which a religion must possess if it is to change a race and exalt a nation.”

132:7.6 (1467.2) Then exclaimed Ganid: “Teacher, let’s you and I make a new religion, one good enough for India and big enough for Rome, and maybe we can trade it to the Jews for Yahweh.” And Jesus replied: “Ganid, religions are not made. The religions of men grow up over long periods of time, while the revelations of God flash upon earth in the lives of the men who reveal God to their fellows.” But they did not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se prophetic words.

132:7.7 (1467.3) That night after they had retired, Ganid could not sleep. He talked a long time with his father and finally said, “You know, father, I sometimes think Joshua is a prophet.” And his father only sleepily replied, “My son, there are others —”

132:7.8 (1467.4) From this day, for the remainder of his natural life, Ganid continued to evolve a religion of his own. He was mightily moved in his own mind by Jesus’ broadmindedness, fairness, and tolerance. In all their discussions of philosophy and religion this youth never experienced feelings of resentment or reactions of antagonism.

132:7.9 (1467.5) What a scene for the celestial intelligences to behold, this spectacle of the Indian lad proposing to the Creator of a universe that they make a new religion! And though the young man did not know it, they were making a new and everlasting religion right then and there — this new way of salvation, the revelation of God to man through, and in, Jesus. That which the lad wanted most to do he was unconsciously actually doing. And it was, and is, ever thus. That which the

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영적{靈的}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계몽되고 반영되는 인간의 상상력이, 온 마음으로 그리고 이기심을 버린 채 하고 싶은 그것과,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은, **아버지** 뜻을 신성하게 행하려는 필사자가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눈에 띌 정도로 창조력을 갖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살아갈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다.

enlightened and reflective human imagination of spiritual teaching and leading wholeheartedly and unselfishly wants to do and be, becomes measurably creativ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mortal dedication to the divine doing of the Father's will. When man goes in partnership with God, great things may, and do, happen.

제 133편. 로마에서 돌아옴

⇨ 132

유랜시아 책

13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3편
로마에서 돌아옴

섹션

소개

1. 자비와 응보
2. 타렌툼에서 배를 탐
3. 고린도에서
4. 고린도에서 개인 업무
5.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강론
6.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7. 키프러스에 체류함--정신에 관한 강론
8. 안디옥에서
9. 메소포타미아에서

PAPER 133

THE RETURN FROM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Mercy and Justice
2. Embarking at Tarentum
3. At Corinth
4. Personal Work in Corinth
5. At Athens — Discourse on Science
6. At Ephesus — Discourse on the Soul
7. The Sojourn at Cyprus — Discourse on Mind
8. At Antioch
9. In Mesopotamia

소개

로마를 떠나려고 준비할 때, **예수**는 친구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마스쿠스** 서기관은 예고 없이 **로마**에 나타났다가, 같은 방법으로 사라졌다.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만나려는 희망을 포기한 것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다. 이 두 번째 해가 끝나기 전에, **예수**를 알고 지냈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됐는데, **예수**의 교훈에 대한 공통 관심, 그리고 그와 함께 지냈던 시절의 즐거웠던 상호간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 **견유학파**, 신비주의자들로 구성된 이 소규모 집단은, 불규칙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런 모임을, **그리스도교** 초기 설교자들이 **로마**에 출현할 때까지 계속했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했으므로, 소유물을 짐꾼 행렬 편으로 미리 **타렌툼**까지 보냈고, 그동안 세 여행자는, 유명한 **아피아 도로**를 따라서 **이태리**를 가로질러 한가히 걸어갔다. 그들은 이 여행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 많은 고귀한 **로**

INTRODUCTION

133:0.1 (1468.1) WHEN preparing to leave Rome, Jesus said good-bye to none of his friends. The scribe of Damascus appeared in Rome without announcement and disappeared in like manner. It was a full year before those who knew and loved him gave up hope of seeing him again.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year small groups of those who had known him found themselves drawn together by their common interest in his teachings and through mutual memory of their good times with him. And these small groups of Stoics, Cynics, and mystery cultists continued to hold these irregular and informal meeting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appearance in Rome of the first preach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133:0.2 (1468.2) Gonod and Ganid had purchased so many things in Alexandria and Rome that they sent all their belongings on ahead by pack train to Tarentum, while the three travelers walked leisurely across Italy over the great Appian Way. On this journey they encountered all sorts of

마 시민과 그리스 식민지 주민이 이 길가에 살았지만, 비천한 노예들의 수많은 자손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 타렌툼에 거의 절반 정도 와서 점심 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 가니드는 인도의 신분계층 체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예수에게 물었다. **예수**가 대답했다: “인간이 여러 방면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필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두 무리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다. 우주가 인간거주 세계들을 내려다볼 때,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는,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든지 동물로 간주된다.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도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다른 자격조건에 의거해서 그들을 여러 계층으로 적절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계층의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에는, 모두 동등한 신분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격체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면에서, 인간의 역량과 재능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는,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에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1. 자비와 응보

그들이 타렌툼에 가까이 당도한 어느 오후에, 길가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거칠고 난폭한 소년이, 자기보다 작은 한 아이를 폭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예수**는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고, 그를 구해낸 후에는, 그 아이가 충분히 멀리 도망갈 때까지 가해자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예수**가 어린 꺾배를 놓아주는 순간, **가니드**가 그 소년에게 달려들어 호되게 때려주기 시작했고, **예수**가 즉시 **가니드**를 제지하자, 그는 매우 놀랐다. **가니드**를 말리면서 겁먹은 그 소년을 도망가게 한 뒤에, 젊은이는 숨을 돌리자마자 흥분하면서 외쳤다: “나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작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비의 요구라면, 응보는 그보다 크고 공격적인 소년에게 별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대답으로 말했다:

“**가니드**야,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비의 사역은 항상 개인의 활동인 반면, 응보의 형벌은, 사회, 통치, 또는 우주 경영 집단의 역할이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고; 곤경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 했으며, 가해자를 말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방금 내가 한 일이었다. 나는 곤경에 처한 아이를

human beings. Many noble Roman citizens and Greek colonists lived along this road, but already the progeny of great numbers of inferior slaves were beginning to make their appearance.

133:0.3 (1468.3) One day while resting at lunch, about halfway to Tarentum, Ganid asked Jesus a direct question as to what he thought of India's caste system. Said Jesus: “Though human beings differ in many ways, the one from another, before God and in the spiritual world all mortals stand on an equal footing. There are only two groups of mortals in the eyes of God: those who desire to do his will and those who do not. As the universe looks upon an inhabited world, it likewise discerns two great classes: those who know God and those who do not. Those who cannot know God are reckoned among the animals of any given realm. Mankind can appropriately be divided into many classes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qualifications, as they may be viewed physically, mentally, socially, vocationally, or morally, but as these different classes of mortals appear before the judgment bar of God, they stand on an equal footing; God is truly no respecter of persons. Although you cannot escape the recognition of differential human abilities and endowments in matters intellectual, social, and moral, you should make no such distinctions in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en when assembled for worship in the presence of God.”

1. MERCY AND JUSTICE

133:1.1 (1468.4) A very interesting incident occurred one afternoon by the roadside as they neared Tarentum. They observed a rough and bullying youth brutally attacking a smaller lad. Jesus hastened to the assistance of the assaulted youth, and when he had rescued him, he tightly held on to the offender until the smaller lad had made his escape. The moment Jesus released the little bully, Ganid pounced upon the boy and began soundly to thrash him, and to Ganid's astonishment Jesus promptly interfered. After he had restrained Ganid and permitted the frightened boy to escape, the young man, as soon as he got his breath, excitedly exclaimed: “I cannot understand you, Teacher. If mercy requires that you rescue the smaller lad, does not justice demand the punishment of the larger and offending youth?” In answering, Jesus said:

133:1.2 (1469.1) “Ganid, it is true, you do not understand. Mercy ministry is always the work of the individual, but justice punishment is the function of the social, governmental, or universe administrative groups. As an individual I am beholden to show mercy; I must go to the rescue of the assaulted lad, and in all consistency I may employ sufficient force to restrain the aggressor.

구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그것으로 내 자비 행위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약한 자가 도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가해자를 힘으로 붙잡아 뒀고, 그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났다. 나는, 가해자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의 동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곧 동료를 공격하도록 만든 모든 것에 대해 판결하고--, 그런 후에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 {代價}라고 내 마음이 지시했을 지도 모르는 처벌을 실행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가니드**야, 자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응보는 엄밀한 것이다. 응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징벌을 결정하는 데는, 두 사람조차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공정한 형벌로, 한 사람은 40대의 매를, 다른 사람은 20대의 매를, 또 어떤 이는 격리시켜서 감금하라고 권고하려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책임이 집단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그 집단이 뽑은 대표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주에서는, 그 동기 뿐 아니라 모든 범죄 전례를 완전히 알고 있는 존재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와 잘 조직된 우주에서는, 응보의 집행은 정당하게 심판한 결과로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런 특권은 세계들에 속한 사법집단들에게, 그리고 전체 창조의 상급 {上級} 우주를 다스리는 전지 {全知}한 경영자들에게 속해 있다.”

그들은 자비를 나타내는 문제와 응보를 집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날 토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니드**는, **예수**가 개인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가니드**는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런 답변은 결코 듣지 못했는데; 그 질문은 이랬다: “그렇지만 **선생님**, 만약 힘이 더 세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안 하실 것입니까?” **예수**는 그의 질문에 완전하고 만족스런 답변을 줄 수 없었음에도, 주시하고 있는 우주를 향한 **낙원 아버지**의 사랑의 본보기로서 자신이(곧 **예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렇게만 이야기했다:

“**가니드**야,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너를 얼마나 혼란시키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네 질문에 대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우선, 나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하나님**의 아들--곧 육신 속에 있는 내 형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며, 그가 도덕적 판단과 영적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가해자에게 발생될 결과에 상관없이,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신분을 이룩한 동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나를 향한 그의 폭행에 대한 판단 없이, 또는 판단 이전에 그에게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그런 공격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서 중지시키는, 그리고 그

And that is just what I did. I achieved the deliverance of the assaulted lad; that was the end of mercy ministry. Then I forcibly detained the aggressor a sufficient length of time to enable the weaker party to the dispute to make his escape, after which I withdrew from the affair. I did not proceed to sit in judgment on the aggressor, thus to pass upon his motive — to adjudicate all that entered into his attack upon his fellow — and then undertake to execute the punishment which my mind might dictate as just recompense for his wrongdoing. Ganid, mercy may be lavish, but justice is precise. Cannot you discern that no two persons are likely to agree as to the punishment which would 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One would impose forty lashes, another twenty, while still another would advise solitary confinement as a just punishment. Can you not see that on this world such responsibilities had better rest upon the group or be administered by chosen representatives of the group? In the universe, judgment is vested in those who fully know the antecedents of all wrongdoing as well as its motivation. In civilized society and in an organized universe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presupposes the passing of just sentence consequent upon fair judgment, and such prerogatives are vested in the juridical groups of the worlds and in the all-knowing administrators of the higher universes of all creation.”

133:1.3 (1469.2) For days they talked about this problem of manifesting mercy and administering justice. And Ganid, at least to some extent, understood why Jesus would not engage in personal combat. But Ganid asked one last question, to which he never received a fully satisfactory answer; and that question was: “But, Teacher, if a stronger and ill-tempered creature should attack you and threaten to destroy you, what would you do? Would you make no effort to defend yourself?” Although Jesus could not fully and satisfactorily answer the lad’s question, inasmuch as he was not willing to disclose to him that he (Jesus) was living on earth as the exemplification of the Paradise Father’s love to an onlooking universe, he did say this much:

133:1.4 (1469.3) “Ganid, I can well understand how some of these problems perplex you, and I will endeavor to answer your question. First, in all attacks which might be made upon my person, I woul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ggressor was a son of God — my brother in the flesh — and if I thought such a creature did not possess moral judgment and spiritual reason, I would unhesitatingly defend myself to the full capacity of my powers of resistance, regardless of consequences to the attacker. But I would not thus assault a fellow man of sonship status, even in self-defense. That is, I would not punish him in advance and without judgment for his assault upon me. I would by every possible artifice seek to

것이 실패할 경우에 그것을 완회시키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니드**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배려를 절대 신뢰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헌신했다. 진정한 해{害}가 내게 미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으며; 적들이 내게 가하려는 어떤 것이든지, 내 필생과업을 정말로 위태롭게 하리라고는 믿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어떤 폭행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당하지 않는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내게 호의적임을 절대로 확신한다--곧 나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심에서 우러나는 확신을 갖고, 전능한 이 진리를 믿고자 한다."

그러나 **가니드**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예수**는 그에게 자신의 소년시절 체험과, 석공의 아들 **아굽**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다. **가니드**는 **아굽**이 **예수**를 지키는 일을 어떻게 자기 일로 삼았는지 알고 난 후에 말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마치 당신이 언제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처럼, 당신을 제발리 도와 줄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선생님**, 당신에게 동의하지만, 내가 **아굽**이었다면, 당신이 방어하지 않음을 미끼로 공격했다고 여겨지는 무례한 사람에게 응징하기를 즐겼으리라 생각, 여전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곤경에 빠진 친구들을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시기 때문에--곧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방어해 줄 어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 여정이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가니드**야, 그 시험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 방어와 무저항에 관한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해, 이 소년이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다른 기회에, 조직된 사회는 올바른 명령을 집행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견해를, **예수**에게서 얻어낼 수 있었다.

2. 타렌툼에서 배를 탐

화물을 내리도록 배를 기다리면서 선착장에 머무는 동안, 그 여행자들은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예수**는 평상시 습관대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재에 나섰다. 그는 성난 남편 뒤로 걸어가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친구여, 나와 잠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나?" 화난 남자는 그런 접근에 어쩔 줄 몰랐고, 잠시 당황해 주저하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저,--왜,--예, 내게 무슨 불일 있습니까?" **예수**는 그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친구여, 내가 보기에는 아주 끔찍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너 같이 건장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 즉 자

prevent and dissuade him from making such an attack and to mitigate it in case of my failure to abort it. Ganid, I have absolute confidence in my heavenly Father's overcare; I am consecrated to doing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 do not believe that real harm can befall me; I do not believe that my lifework can really be jeopardized by anything my enemies might wish to visit upon me, and surely we have no violence to fear from our friends. I am absolutely assured that the entire universe is friendly to me — this all-powerful truth I insist on believing with a wholehearted trust in spite of all appearances to the contrary."

133:1.5 (1470.1) But Ganid was not fully satisfied. Many times they talked over these matters, and Jesus told him some of his boyhood experiences and also about Jacob the stone mason's son. On learning how Jacob appointed himself to defend Jesus, Ganid said: "Oh, I begin to see! In the first place very seldom would any normal human being want to attack such a kindly person as you, and even if anyone should be so unthinking as to do such a thing, there is pretty sure to be near at hand some other mortal who will fly to your assistance, even as you always go to the rescue of any person you observe to be in distress. In my heart, Teacher, I agree with you, but in my head I still think that if I had been Jacob, I would have enjoyed punishing those rude fellows who presumed to attack you just because they thought you would not defend yourself. I presume you are fairly safe in your journey through life since you spend much of your time helping others and ministering to your fellows in distress — well, most likely there'll always be someone on hand to defend you." And Jesus replied: "That test has not yet come, Ganid, and when it does, we will have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And that was about all the lad could get his teacher to say on this difficult subject of self-defense and nonresistance. On another occasion he did draw from Jesus the opinion that organized society had every right to employ force in the execution of its just mandates.

2. EMBARKING AT TARENTUM

133:2.1 (1470.2) While tarrying at the ship landing, waiting for the boat to unload cargo, the travelers observed a man mistreating his wife. As was his custom, Jesus intervened in behalf of the person subjected to attack. He stepped up behind the irate husband and, tapping him gently on the shoulder, said: "My friend, may I speak with you in private for a moment?" The angry man was nonplused by such an approach and, after a moment of embarrassing hesitation, stammered out — "er — why — yes, what do you want with me?" When Jesus had led him to one side, he said: "My friend, I perceive that something terrible must have happened to you; I very much desire that you tell

기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게 됐는지 내게 말해주시기 바란다. 내가 이렇게 폭행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느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무엇 때문에 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됐을까?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자비를 베풀 의향은 없더라도, 공의를 사랑함을 네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말하겠는데, 길가에서 도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했다면, 너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달려왔을 것이다. 나는 네가, 네 인생 중에 그런 용감한 일을 여러 번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친구여 말해봐라, 무엇이 문제인가? 저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네가 어리석게 이성을 잃고 생각 없이 아내에게 폭행했느냐?” 이 남자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말한 내용 자체보다, 오히려 말을 마치면서 **예수**가 그에게 보여준, 친절한 표정과 인정 어린 미소였다.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견유학파** 사제인 것 같은데, 나를 말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 아내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으며, 착한 여자입니다만,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해서 흥분시켰고, 내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자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더 나은 삶의 방법을 내게 가르쳤던, 당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오래 전에 했던 내 서약에 어울리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예수**가 말했다: “형제여, 여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는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어떤 정당한 권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네 아내는 너와 일생을 같이 보내고, 함께 도와서 고난을 헤쳐 나가며, 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 더 힘든 몫을 담당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여자는, 이런 특별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자기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줘야 하는 동반자로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네게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꺼이 주는 사랑스런 보호와 배려는, 더 높은 수준의 창조적이고 영적인 자아_의식을 그 사람이 달성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불멸하는 혼을 스스로 소유하기까지 성장하는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해 협동할 때, 남녀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자녀들의 **영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신다. 자녀들의 생명 속에서 너희 자신을 재생산하는 신성한 체험을, 너와 함께 그토록 완전하게 공유하는 어머니 동역자와 함께, 너의 삶,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똑같이 분담하는 것은 존엄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가 네 자녀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방대한 우주의 모든 영 자녀의 어머니인 **무한한 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존중하고 높여주시는 것처럼,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에 오르면서, 눈물에 젖은 채 말없이 포옹하며 서 있는 부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

me what could happen to such a strong man to lead him to attack his wife, the mother of his children, and that right out here before all eyes. I am sure you must feel that you have some good reason for this assault. What did the woman do to deserve such treatment from her husband? As I look upon you, I think I discern in your face the love of justice if not the desire to show mercy. I venture to say that, if you found me out by the wayside, attacked by robbers, you would unhesitatingly rush to my rescue. I dare say you have done many such brave things in the course of your life. Now, my friend, tell me what is the matter? Did the woman do something wrong, or did you foolishly lose your head and thoughtlessly assault her?” It was not so much what he said that touched this man's heart as the kindly look and the sympathetic smile which Jesus bestowed upon him at the conclusion of his remarks. Said the man: “I perceive you are a priest of the Cynics, and I am thankful you restrained me. My wife has done no great wrong; she is a good woman, but she irritates me by the manner in which she picks on me in public, and I lose my temper. I am sorry for my lack of self-control, and I promise to try to live up to my former pledge to one of your brothers who taught me the better way many years ago. I promise you.”

133:2.2 (1471.1) And then, in bidding him farewell, Jesus said: “My brother, always remember that man has no rightful authority over woman unless the woman has willingly and voluntarily given him such authority. Your wife has engaged to go through life with you, to help you fight its battles, and to assume the far greater share of the burden of bearing and rearing your children; and in return for this special service it is only fair that she receive from you that special protection which man can give to woman as the partner who must carry, bear, and nurture the children. The loving care and consideration which a man is willing to bestow upon his wife and their children are the measure of that man's attainment of the higher levels of creative and spiritual self-consciousness. Do you not know that men and women are partners with God in that they co-operate to create beings who grow up to possess themselves of the potential of immortal souls? The Father in heaven treats the Spirit Mother of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as one equal to himself. It is Godlike to share your life and all that relates thereto on equal terms with the mother partner who so fully shares with you that divine experience of reproducing yourselves in the lives of your children. If you can only love your children as God loves you, you will love and cherish your wife as the Father in heaven honors and exalts the Infinite Spirit, the mother of all the spirit children of a vast universe.”

133:2.3 (1471.2) As they went on board the boat, they looked back upon the scene of the teary-eyed

었다. **고노드**는, 그 사람에게 했던 **예수**의 후반부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생각에 하루 종일 잠겨 있었고, **인도**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을 개혁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니코폴리스로 가는 여정은 순탄했지만, 바람이 좋지 않아서 속도가 느렸다. 세 사람은 **로마**에서 했던 체험에 대해 여러 시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난 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회상했다. 개인 사역의 영이 **가니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배의 관리인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둘째 날, 깊은 종교적 곤경에 빠지게 되자, 자기를 구해달라면서 **예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니코폴리스**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그 도시는, **아우구스투스**가 50년 전에 **악티움**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도시”로 세운 곳이었고,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군대를 이끌고 야영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배에서 만나게 된 **그리스** 사람인, **제라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유대인**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제라미**의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니코폴리스**를 떠나서, **아가아라**는 **로마** 식민지 수도인 **고린도**로 향해했다.

3. 고린도에서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할 즈음, **가니드**는 **유대** 종교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됐으며,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유대** 회당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가 **예수**에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자고 제안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박식한 랍비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예배 후에 이 회당의 최고 관리인 **그리스보**를 만났다. 그 후에도 그들은 그 회당에 여러 번 갔는데, 주로 **그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니드**는 **그리스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다섯 명의 아이를 매우 좋아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 어떻게 가족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가니드가 가족생활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보**에게 종교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는 진취적인 이 **유대인**과 20번 이상 만났으며, 여러 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서 전도하자, **유대인**이 그의 복음을 배척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갔을 때,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새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조직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요 지지자 가운데 하나가 됐음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couple standing in silent embrace. Having heard the latter half of Jesus' message to the man, Gonod was all day occupied with meditations thereon, and he resolved to reorganize his home when he returned to India.

133:2.4 (1471.3) The journey to Nicopolis was pleasant but slow as the wind was not favorable. The three spent many hours recounting their experiences in Rome and reminiscing about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since they first met in Jerusalem. Ganid was becoming imbued with the spirit of personal ministry. He began work on the steward of the ship, but on the second day, when he got into deep religious water, he called on Joshua to help him out.

133:2.5 (1471.4) They spent several days at Nicopolis, the city which Augustus had founded some fifty years before as the “city of victory” in commemoration of the battle of Actium, this site being the land whereon he camped with his army before the battle. They lodged in the home of one Jeramy, a Greek proselyte of the Jewish faith, whom they had met on shipboard. The Apostle Paul spent all winter with the son of Jeramy in the same house in the course of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From Nicopolis they sailed on the same boat for Corinth,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Achaia.

3. AT CORINTH

133:3.1 (1471.5) By the time they reached Corinth, Ganid was becoming very much interested in the Jewish religion, and so it was not strange that, one day as they passed the synagogue and saw the people going in, he requested Jesus to take him to the service. That day they heard a learned rabbi discourse on the “Destiny of Israel,” and after the service they met one Crispus, the chief ruler of this synagogue. Many times they went back to the synagogue services, but chiefly to meet Crispus. Ganid grew to be very fond of Crispus, his wife, and their family of five children. He much enjoyed observing how a Jew conducted his family life.

133:3.2 (1472.1) While Ganid studied family life, Jesus was teaching Crispus the better ways of religious living. Jesus held more than twenty sessions with this forward-looking Jew; and it is not surprising, years afterward, when Paul was preaching in this very synagogue, and when the Jews had rejected his message and had voted to forbid his further preaching in the synagogue, and when he then went to the gentiles, that Crispus with his entire family embraced the new religion, and that he became one of the chief supports of the Christian church which Paul subsequently organized at Corinth.

바울은, 훗날 **실라** 및 **디모데**와 합세하여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전도했을 때, “**인도** 상인의 아들의 **유대인** 가정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세 대륙{大陸}으로부터 온 모든 인종의 사람을 만났다.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 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았고, **가니드**는 거의 해발 2,000피트 위에 서 있는 성을 방문하기에 한 번도 싫증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여가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대** 회당과 **그리스보**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유대** 가정에서 여자의 위치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매료됐는데, 이 젊은 **인도인**에게는 하나의 계시였다.

예수와 **가니드**는 또 다른 **유대인**, **유스도**의 집으로 자주 초대받았는데, 그는 회당 옆에 살던 경건한 상인이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는 **인도** 청년과 그의 **유대인** 가정교사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는 동안 **바울**과 **유스도**는 그토록 현명하고 총명한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로마에 있을 때, **가니드**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공중목욕탕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성{性}관계에 대해 **예수**가 좀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여러 번 유도하려고 했다. 그가 소년의 질문에 대답하려 했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이 **고린도**에서 산보하다가 성벽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가까이 갔을 때, 두 매춘부가 말을 걸어 왔다. **가니드**는, **예수**가 높은 이상{理想}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하거나 악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관념에 당연히 동화됐으므로; 이 여자들에게 날카롭게 말하면서 비키라고 거칠게 손짓했다. 이것을 본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다, “네 호의는 고맙지만, 그들이 어찌다가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여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겠느냐? 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수단에 의지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인 모든 환경을, 내가 과연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 잠시 멈추자꾸나.” 매춘부들은 **가니드**의 말보다 오히려 **예수**의 말에 더 놀랐다.

그들은 달이 비치는 곳에 서 있었고, **예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인 신성한 영이, 모든 인간 정신 속에 거하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을 알도록 도와주려고 언제나 애쓰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필사자 안에는, 개인과 종족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주**가

133:3.3 (1472.2) During the eighteen months Paul preached in Corinth, being later joined by Silas and Timothy, he met many others who had been taught by the “Jewish tutor of the son of an Indian merchant.”

133:3.4 (1472.3) At Corinth they met people of every race hailing from three continents. Next to Alexandria and Rome, it was the most cosmopolitan city of the Mediterranean empire. There was much to attract one's attention in this city, and Ganid never grew weary of visiting the citadel which stood almost two thousand feet above the sea. He also spent a great deal of his spare time about the synagogue and in the home of Crispus. He was at first shocked, and later on charmed, by the status of woman in the Jewish home; it was a revelation to this young Indian.

133:3.5 (1472.4) Jesus and Ganid were often guests in another Jewish home, that of Justus, a devout merchant, who lived alongside the synagogue. And many times, subsequently, when the Apostle Paul sojourned in this home, did he listen to the recounting of these visits with the Indian lad and his Jewish tutor, while both Paul and Justus wondered whatever became of such a wise and brilliant Hebrew teacher.

133:3.6 (1472.5) When in Rome, Ganid observed that Jesus refused to accompany them to the public baths. Several times afterward the young man sought to induce Jesus further to express himself in regard to the relations of the sexes. Though he would answer the lad's questions, he never seemed disposed to discuss these subjects at great length. One evening as they strolled about Corinth out near where the wall of the citadel ran down to the sea, they were accosted by two public women. Ganid had imbibed the idea, and rightly, that Jesus was a man of high ideals, and that he abhorred everything which partook of uncleanness or savored of evil; accordingly he spoke sharply to these women and rudely motioned them away. When Jesus saw this, he said to Ganid: “You mean well, but you should not presume thus to speak to the children of God, even though they chance to be his erring children. Who are we that we should sit in judgment on these women? Do you happen to know all of the circumstances which led them to resort to such methods of obtaining a livelihood? Stop here with me while we talk about these matters.” The courtesans were astonished at what he said even more than was Ganid.

133:3.7 (1472.6) As they stood there in the moonlight, Jesus went on to say: “There lives within every human mind a divine spirit, the gift of the Father in heaven. This good spirit ever strives to lead us to God, to help us to find God and to know God; but also within mortals there are many natural physical tendencies which the Creator put there to serve

넣어준, 많은 타고난 육체적 성향도 있다. 지금은, 남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혼란을 겪으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니드**야, 이 두 여자 중에서 누구도 의도적으로 사악하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나는 그들이 많은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외견상 잔인한 운명의 손에 많은 고통을 겪어 온 것;의도적으로 이런 종류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절망의 가장자리에서 낙망하여 당시 상황에 굴복했고, 그들에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을 빠져나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생계 수단에 의지해 왔던 것을,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 **가니드**야, 어떤 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악하며;고의적으로 비열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쁘거나 악한 어떤 것이든지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멈추자, **가니드**는 목소리가 막혀 더듬거리며 간신히 대답했다:“**선생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무례함을 사과합니다--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그분 대신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말하겠다. 자,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간단한 음식을 청한 후에, 앞으로의 새롭고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 놀란 여자들은 이때까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서로 쳐다보다가 남자들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예수가 **가니드**와 함께 이 두 손님을 데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유스도**의 아내가 놀란 것을 상상해 보라:“이런 시간에 온 우리를 용서하고, **가니드**와 내게 음식을 조금 주기 바라며, 새로 만난 이 친구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들도 아마 배가 고플 것이며;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여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일에, 너희도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왔다. 저들이 너희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많은 곤경을 겪었다는 것과, 여기 너희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선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지 입증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이 얼마만큼 용감하며 고상한 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일지, 나는 짐작한다.”

유스도의 아내인 **마르다**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예수**는 뜻밖의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시간이 늦었고, 또한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고자**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너희--곧 세 여자-를- 여기에 남겨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저 높은 곳의 영원한 생애를 위해 계획하는 동안,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안내받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가니드**는 여자들로부터 떠났다. 이때까지 두 매춘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and the race. Now, oftentimes, men and women become confused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o grapple with the manifold difficulties of making a living in a world so largely dominated by selfishness and sin. I perceive, Ganid, that neither of these women is willfully wicked. I can tell by their faces that they have experienced much sorrow; they have suffered much at the hands of an apparently cruel fate; they have not intentionally chosen this sort of life; they have, in discouragement bordering on despair, surrendered to the pressure of the hour and accepted this distasteful means of obtaining a livelihood as the best way out of a situation that to them appeared hopeless. Ganid, some people are really wicked at heart; they deliberately choose to do mean things, but, tell me, as you look into these now tear-stained faces, do you see anything bad or wicked?” And as Jesus paused for his reply, Ganid's voice choked up as he stammered out his answer: “No, Teacher, I do not. And I apologize for my rudeness to them — I crave their forgiveness.” Then said Jesus: “And I bespeak for them that they have forgiven you as I speak for my Father in heaven that he has forgiven them. Now all of you come with me to a friend's house where we will seek refreshment and plan for the new and better life ahead.” Up to this time the amazed women had not uttered a word;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silently followed as the men led the way.

133:3.8 (1473.1) Imagine the surprise of Justus' wife when, at this late hour, Jesus appeared with Ganid and these two strangers, saying: “You will forgive us for coming at this hour, but Ganid and I desire a bite to eat, and we would share it with these our new-found friends, who are also in need of nourishment; and besides all this, we come to you with the thought that you will be interested in counseling with us as to the best way to help these women get a new start in life. They can tell you their story, but I surmise they have had much trouble, and their very presence here in your house testifies how earnestly they crave to know good people, and how willingly they will embrace the opportunity to show all the world — and even the angels of heaven — what brave and noble women they can become.”

133:3.9 (1473.2) When Martha, Justus' wife, had spread the food on the table, Jesus, taking unexpected leave of them, said: “As it is getting late, and since the young man's father will be awaiting us, we pray to be excused while we leave you here together — three women — the beloved children of the Most High. And I will pray for your spiritual guidance while you make plans for a new and better life on earth and eternal life in the great beyond.”

133:3.10 (1473.3) Thus did Jesus and Ganid take leave of the women. So far the two courtesans had said

았으며; **가니드** 역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마르다**도 그랬지만, 곧 그 상황에 대처했고, **예수**가 기대했던 모든 일을, 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이행했다. 이 두 여자 중에서 연장자는 그 후에 곧 영원한 생존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여자는 **유스도**의 일터에서 일했으며, 나중에는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평생 봉사했다.

예수와 **가니드**는 **그리스보**의 집에서 **가이우스**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바울**을 충실하게 후원하는 자가 됐다. 그들은 두 달 동안 **고린도**에서 20명의 훌륭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접촉의 결과로 영향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훗날 **그리스도교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장기간 방문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무를 위해, **유대인** 개인교사가 길을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아굴라**와 **브리시길라**가 이미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굴라**는 **견유학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예수**와 접촉했던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피난민이었고, **바울**의 교훈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들 역시 천막 짓는 자였으므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4. 고린도에서 개인 업무

예수와 **가니드**는 **고린도**에서 더 재미있는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받은 훈육으로 큰 유익을 얻은 수많은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제분업자에게, 삶의 체험이라는 제분기에 진리의 알곡을 제분하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으로써, 약하고 힘없는 동료 필사자도 신성한 삶에 대한 어려운 사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수**가 말했다: “영적 깨달음에서 아직 아기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의 우유를 줘라. 네가 활기차고 사랑스런 봉사를 할 때, 영적 음식을 매력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네게 질문하는 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맞춰라.”

그는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직 **신격**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경의{敬意}를, **가이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예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스런 봉사는 충돌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훌륭한 황제에 대한 네 헌신이 더 충성되고 신실하게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nothing; likewise was Ganid speechless. And for a few moments so was Martha, but presently she rose to the occasion and did everything for these strangers that Jesus had hoped for. The elder of these two women died a short time thereafter, with bright hopes of eternal survival, and the younger woman worked at Justus' place of business and later became a lifelong member of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Corinth.

133:3.11 (1473.4) Several times in the home of Crispus, Jesus and Ganid met one Gaius, who subsequently became a loyal supporter of Paul. During these two months in Corinth they held intimate conversations with scores of worth-while individuals, and as a result of all these apparently casual contacts more than half of the individuals so affected became members of the subsequent Christian community.

133:3.12 (1473.5) When Paul first went to Corinth, he had not intended to make a prolonged visit. But he did not know how well the Jewish tutor had prepared the way for his labors. And further, he discovered that great interest had already been aroused by Aquila and Priscilla, Aquila being one of the Cynics with whom Jesus had come in contact when in Rome. This couple were Jewish refugees from Rome, and they quickly embraced Paul's teachings. He lived with them and worked with them, for they were also tentmakers. It was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at Paul prolonged his stay in Corinth.

4. PERSONAL WORK IN CORINTH

133:4.1 (1474.1) Jesus and Ganid had many more interesting experiences in Corinth. They had close converse with a great number of persons who greatly profited by the instruction received from Jesus.

133:4.2 (1474.2) The miller he taught about grinding up the grains of truth in the mill of living experience so as to render the difficult things of divine life readily receivable by even the weak and feeble among one's fellow mortals. Said Jesus: “Give the milk of truth to those who are babes in spiritual perception. In your living and loving ministry serve spiritual food in attractive form and suited to the capacity of receptivity of each of your inquirers.”

133:4.3 (1474.3) To the Roman centurion he said: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The sincere service of God and the loyal service of Caesar do not conflict unless Caesar should presume to arrogate to himself that homage which alone can be claimed by Deity. Loyalty to God, if you should come to know him, would render you all the more loyal and faithful in your devotion to a worthy emperor.”

미드라고의 진지한 지도자에게 말했다: “너는 영원한 구원의 종교는 잘 찾지만, 사람이 만든 신비와 인간 철학에서 영광스런 진리를 추구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영원한 구원의 신비가, 바로 너의 혼 속에 거하고 있음을 모르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 네 안에 거하도록 보내셨다는 것과, 이 생애로부터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자녀들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빛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필사자를, 이 영이 인도하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결코 잊지 마라: 너희가 그분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하면,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피쿠로스학파 선생에게 말했다: “너는, 최선을 선택하고 선을 존중하기는 잘 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에서 유래되고 영 영역에 구현된, 필사자 생애의 더 위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네가 현명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모든 체험 중에서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현함이고, 그의 영은 네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모든 창조의 **하나님**, 우주들의 **주(主)**를 직접 만나기까지 길고 거의 끝없는 여정에서, 너를 인도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스의 건축청부업자에게 말했다: “친구여, 네가 사람의 물질적 건물을 짓는 것처럼, 네 혼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을 닮도록 영적 성품을 성장시켜라. 이 세상에서 건축가로서 성공하는 것이, 하늘 나라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세계에서 맨션을 짓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한 영원한 맨션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의로움과 진리가 기초를 이루는 도성(都城),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도성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라.”

그가 **로마** 재판관에게 말했다: “네가 사람을 재판할 때, 너 자신도 언젠가 우주 **통치자**의 피고석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 **지존하신 중재자**의 손에서 자비로운 배려를 간청하게 될 것이니, 공정하게, 심지어 자비롭게 판결하라. 글자 그대로의 법으로만 아니라, 법의 정신에 안내를 받아서, 너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심판받듯이 판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앞에 불려온 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함으로 조절된 공의를 베풀 것만큼, 너도 언젠가 이 세상 전체의 **재판관** 앞에 서서 자비로 완화된 응보를 기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리스** 여인숙(旅人宿)의 여주인에게 말했다: “**지고자**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친절할 태도를 갖도록 해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려고 내려온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네가 봉사하고 있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인 단조롭고 힘든 일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리며, 그리하여 저희의 정신

133:4.4 (1474.4) To the earnest leader of the Mithraic cult he said: “You do well to seek for a religion of eternal salvation, but you err to go in quest of such a glorious truth among man-made mysteries and human philosophies. Know you not that the mystery of eternal salvation dwells within your own soul? Do you not know that the God of heaven has sent his spirit to live within you, and that this spirit will lead all truth-loving and God-serving mortals out of this life and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up to the eternal heights of light where God waits to receive his children? And never forget: You who know God are the sons of God if you truly yearn to be like him.”

133:4.5 (1474.5) To the Epicurean teacher he said: “You do well to choose the best and esteem the good, but are you wise when you fail to discern the greater things of mortal life which are embodied in the spirit realms deriv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God in the human heart? The great thing in all human experience is the realization of knowing the God whose spirit lives within you and seeks to lead you forth on that long and almost endless journey of attaining the personal presence of our common Father, the God of all creation, the Lord of universes.”

133:4.6 (1474.6) To the Greek contractor and builder he said: “My friend, as you build the material structures of men, grow a spiritual character in the similitude of the divine spirit within your soul. Do not let your achievement as a temporal builder outrun your attainment as a spiritual son of the kingdom of heaven. While you build the mansions of time for another, neglect not to secure your title to the mansions of eternity for yourself. Ever remember, there is a city whose foundations are righteousness and truth, and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133:4.7 (1474.7) To the Roman judge he said: “As you judge men, remember that you yourself will also some day come to judgment before the bar of the Rulers of a universe. Judge justly, even mercifully, even as you shall some day thus crave merciful consideration at the hands of the Supreme Arbiter. Judge as you would be judg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us being guided by the spirit of the law as well as by its letter. And even as you accord justice dominated by fairness in the light of the need of those who are brought before you, so shall you have the right to expect justice tempered by mercy when you sometime stand before the Judge of all the earth.”

133:4.8 (1475.1) To the mistress of the Greek inn he said: “Minister your hospitality as one who entertains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Elevate the drudgery of your daily toil to the high levels of a fine art through the increasing realization that you minister to God in the persons whom he indwells by his spirit which has descended to live within the

을 변화시키고 혼을 인도해서, 이 모든 선물, 즉 신성한 영을 증여하신 **낙원 아버지**를 알게 하라.”

예수는 **중국인** 상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 작별을 고하면서 권고했다: “너의 진정한 영 조상인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항상 거하시고, 너의 혼의_방향을 하늘 쪽으로 항상 가리키고 있음을 잊지 마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불멸하는 이 영의 인도를 네가 따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향상된 길을 계속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한다면, 그것은 네가 그를 찾음으로써 점점 더 그분처럼 되기 때문일 것이다. **헝가**, 오직 짧은 세월이지만 잘 있거라, 영적 혼들의 **아버지**께서, **낙원**으로 가도록 결정된 자들을 위해 매혹적인 여러 정류장을 제공해 놓으신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말했다: “형제여, 나는 네가 진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든 진리의 **아버지**의 영이 지금 네 안에 거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너는 자신의 혼에 속한 그 영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일은 정말로 어렵고 성공을 의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모든 물질 정신이, 내주하는 영과 대화하려는 진실한 모든 시도는, 확실히 성공을 거두는데, 그럼에도 그런 놀라운 인간 체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혼 속에 초의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채로 반드시 오랫동안 남아있다.”

가출한 소년에게 **예수**가 말했다: “네가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가-- 곧 **하나님**과 너 자신이-- 있음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마음 속에 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과 너 자신이 함께 있다. 애야, 너 자신을 속이기를 멈추고; 삶의 실상을 대면하여 용감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안주하며; 내가 가르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신분이고 확실히 영생활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져라. 오늘부터 진정한 남자, 용감하고 충명하게 인생에 대처하기로 각오한 남자가 되겠다고 결심해라.”

그는 죄가 확정된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제여, 너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다. 너는 길을 잃었고; 범죄의 울가미에 걸려들었다. 너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나는 네가 이 세상 생명을 잃을 만한 것을 계획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음을 잘 알게 됐다. 그러나 너는 이 악을 행했고, 동료들은 너를 죄인으로 심판했으며; 네게 사형을 선고했다. 너나 나나,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자체를_방어할 이 권리를 가진 국가를 거역할 수 없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네 잘못에 대한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동료들은 네 행위에 따라 판단했지만, 네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심판관**이 있는데, 그는 너의 진짜 동기 그리고 더 나은 의도에 의거해서 심판할 것이다. 네 참회가 순수하고 네 신앙이 진지하

hearts of men, thereby seeking to transform their minds and lead their souls to the knowledge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these bestowed gifts of the divine spirit.”

133:4.9 (1475.2) Jesus had many visits with a Chinese merchant. In saying good-bye, he admonished him: “Worship only God, who is your true spirit ancestor. Remember that the Father’s spirit ever lives within you and always points your soul-direction heavenward. If you follow the unconscious leadings of this immortal spirit, you are certain to continue on in the uplifted way of finding God. And when you do attain the Father in heaven, it will be because by seeking him you have become more and more like him. And so farewell, Chang, but only for a season, for we shall meet again in the worlds of light where the Father of spirit souls has provided many delightful stopping-places for those who are Paradise-bound.”

133:4.10 (1475.3) To the traveler from Britain he said: “My brother, I perceive you are seeking for truth, and I suggest that the spirit of the Father of all truth may chance to dwell within you. Did you ever sincerely endeavor to talk with the spirit of your own soul? Such a thing is indeed difficult and seldom yields consciousness of success; but every honest attempt of the material mind to communicate with its indwelling spirit meets with certain success, notwithstanding that the majority of all such magnificent human experiences must long remain as superconscious registrations in the souls of such God-knowing mortals.”

133:4.11 (1475.4) To the runaway lad Jesus said: “Remember, there are two things you cannot run away from — God and yourself. Wherever you may go, you take with you yourself and the spirit of the heavenly Father which lives within your heart. My son, stop trying to deceive yourself; settle down to the courageous practice of facing the facts of life; lay firm hold on the assurances of sonship with God and the certainty of eternal life, as I have instructed you. From this day on purpose to be a real man, a man determined to face life bravely and intelligently.”

133:4.12 (1475.5) To the condemned criminal he said at the last hour: “My brother, you have fallen on evil times. You lost your way; you became entangled in the meshes of crime. From talking to you, I well know you did not plan to do the thing which is about to cost you your temporal life. But you did do this evil, and your fellows have adjudged you guilty; they have determined that you shall die. You or I may not deny the state this right of self-defense in the manner of its own choosing. There seems to be no way of humanly escaping the penalty of your wrongdoing. Your fellows must judge you by what you did, but there is a Judge to whom you may appeal for forgiveness, and who will judge you by

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네 오류로 인해 사람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네 혼이 공평하게 평가되고 자비를 누릴 가능성에, 어떤 편견도 주지 않는다.”

예수는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굶주린 혼과 여러 차례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세 여행자는 **고린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 중심지로서 더 많이 알려진 **아테네**를 제외하면, **고린도**는 이런 **로마** 통치 시대에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번성하는 이 상업 도시에서 두 달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가치 있는 체험을 하게 됐다. 이 도시에 머문 것은, **로마**로부터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

고노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마침내 사업상의 일을 모두 끝냈고, 그들은 **아테네**로 항해할 준비를 했다. **고린도**의 한 항구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다른 항구까지, 그들은 육로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로 여행했다.

5.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강론

그들은 곧 **그리스**의 과학과 학문의 오래된 중심지에 도착했고, **가니드**는 **그리스**에, 그것도 **아테네**에 와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는데, 그곳은 자기 나라인 **인도** 국경까지 한때 지배했던 **알렉산더** 제국의 문화 중심지였다. 사업상 볼일은 거의 없었으며;그래서 **고노드**는, 흥미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소년과 그의 다재다능한 선생의 흥미로운 토의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와 **가니드**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아테네에서는 한 큰 대학이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 대학의 강의실을 자주 방문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에서 강의에 참석했을 때, **예수**와 **가니드**는 **플라톤**의 가르침에 대해 면밀히 토론했었다. 그들은 모두,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 예술 작품을 관람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숙소에서 어느 날 저녁에 **예수**가 **그리스** 철학자와 가졌던 과학에 대한 토의를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현학자가 거의 세 시간 이야기한 후에 강의가 끝나자 **예수**가 말했는데, 현대 사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인력{引力}, 빛, 그리고 전류의 에너지 또는 힘의 형태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 현상이 무엇인지 결코 (과학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 과학

your real motives and better intentions. You need not fear to meet the judgment of God if your repentance is genuine and your faith sincere. The fact that your error carries with it the death penalty imposed by man does not prejudice the chance of your soul to obtain justice and enjoy mercy before the heavenly courts.”

133:4.13 (1476.1) Jesus enjoyed many intimate talks with a large number of hungry souls, too many to find a place in this record. The three travelers enjoyed their sojourn in Corinth. Excepting Athens, which was more renowned as an educational center, Corinth was the most important city in Greece during these Roman times, and their two months' stay in this thriving commercial center afforded opportunity for all three of them to gain much valuable experience. Their sojourn in this city wa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ir stops on the way back from Rome.

133:4.14 (1476.2) Gonod had many interests in Corinth, but finally his business was finished, and they prepared to sail for Athens. They traveled on a small boat which could be carried overland on a land track from one of Corinth's harbors to the other, a distance of ten miles.

5. AT ATHENS — DISCOURSE ON SCIENCE

133:5.1 (1476.3) They shortly arrived at the olden center of Greek science and learning, and Ganid was thrilled with the thought of being in Athens, of being in Greece, the cultural center of the onetime Alexandrian empire, which had extended its borders even to his own land of India. There was little business to transact; so Gonod spent most of his time with Jesus and Ganid, visiting the many points of interest and listening to the interesting discussions of the lad and his versatile teacher.

133:5.2 (1476.4) A great university still thrived in Athens, and the trio made frequent visits to its halls of learning. Jesus and Ganid had thoroughly discussed the teachings of Plato when they attended the lectures in the museum at Alexandria. They all enjoyed the art of Greece, examples of which were still to be found here and there about the city.

133:5.3 (1476.5) Both the father and the son greatly enjoyed the discussion on science which Jesus had at their inn one evening with a Greek philosopher. After this pedant had talked for almost three hours, and when he had finished his discourse, Jesus, in terms of modern thought, said:

133:5.4 (1476.6) Scientists may some day measure the energy, or force manifestations, of gravitation, light, and electricity, but these same scientists can never (scientifically) tell you what these universe phenomena are. Science deals with physical-

은 물리_에너지 활동을 다루며;종교는 영원한 가치를 다룬다. 진정한 철학은, 이런 양적 및 질적 관측을 연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부터 태동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눈 먼 것은 그만 두고라도, 수학적 자부심과 통계학적 자만심으로 고난당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논리는 물질 세상에서 유효하고, 수학은 물질적인 것들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확실하지만;생명의 문제에 적용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전적으로 신뢰할 만 하거나 절대로 확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생명은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의 털을 깎는데 10분이 소요된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분 만에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데, 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그들이 서로 방해가 돼서 일이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단위의 지적 및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열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체를 다룰 때에는, 그런 인격체 연합은 단순한 산수(算數) 합계라기보다, 오히려 관련된 인격체들 숫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합계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협동해서 일하는 조화된 인간의 사회집단은,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나타낸다.

양{量}은 사실로 증명될 수 있고, 그래서 과학적 균일성을 갖추게 된다. 질{質}은 정신 해석의 문제이므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체험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과학과 종교가 모두 독단을 줄이게 되고 비평을 더 잘 받아들이 수 있게 되면, 철학은 비로소 통일을 이루게 되어, 우주를 지성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질서정연한 우주에는 통일이 있는데, 실제로 작용하는 그것을 네가 식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실제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우호적이다. 실제 문제는: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논리적이고 진실하고 일치하는 사고(思考)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를_아는 이 정신 상태는, 양적인 사실과 질적인 가치가 **낙원 아버지** 안에서 공통의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실체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주 현상의 의도적 통일에 대한 확대된 통찰력을 갖게 하며;그것은 인격이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영적 목표까지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인격적 관계와 진화하는 인격적 관계로 이뤄진, 생생한 우주의 변하지 않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는 통일성 개념이다.

물질과 영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상태는, 실제 우주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는, 서로

energy activities; religion deals with eternal values. True philosophy grows out of the wisdom which does its best to correlate the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bservations. There always exists the danger that the purely physical scientist may become afflicted with mathematical pride and statistical egotism, not to mention spiritual blindness.

133:5.5 (1476.7) Logic is valid in the material world, and mathematics is reliable when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physical things; but neither is to be regarded as wholly dependable or infallible when applied to life problems. Life embraces phenomena which are not wholly material. Arithmetic says that, if one man could shear a sheep in ten minutes, ten men could shear it in one minute. That is sound mathematics, but it is not true, for the ten men could not so do it; they would get in one another's way so badly that the work would be greatly delayed.

133:5.6 (1477.1) Mathematics asserts that, if one person stands for a certain unit of intellectual and moral value, ten persons would stand for ten times this value. But in dealing with human personality it would be nearer the truth to say that such a personality association is a sum equal to the square of the number of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equation rather than the simple arithmetical sum. A social group of human beings in co-ordinated working harmony stands for a force far greater than the simple sum of its parts.

133:5.7 (1477.2) Quantity may be identified as a *fact*, thus becoming a scientific uniformity. Quality, being a matter of mind interpretation, represents an estimate of *values*, and must, therefore, remain an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When both science and religion become less dogmatic and more tolerant of criticism, philosophy will then begin to achieve *unity* in the intelligent comprehension of the universe.

133:5.8 (1477.3) There is unity in the cosmic universe if you could only discern its workings in actuality. The real universe is friendly to every child of the eternal God. The real problem is: How can the finite mind of man achieve a logical, true, and corresponding unity of thought? This universe-knowing state of mind can be had only by conceiving that the quantitative fact and the qualitative value have a common causation in the Paradise Father. Such a conception of reality yields a broader insight into the purposeful unity of universe phenomena; it even reveals a spiritual goal of progressive personality achievement. And this is a concept of unity which can sense the unchanging background of a living universe of continually changing impersonal relations and evolving personal relationships.

133:5.9 (1477.4) Matter and spirit and the state intervening between them are three interrelated

관계되고 상호관련된 세 가지 수준이다. 사실과 가치라는 우주 현상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결국 **지존자** 안에서 통합된다.

물질 존재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뿐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 에너지에도 부여된다. 우주 에너지들이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필수 운동량만 갖게 되면, 바로 이 에너지는, 적당한 조건 속에서 물체가 된다. 그리고 명백한 실체의 현존을 독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 자체도 역시 실체임을 잊지 마라. 에너지-물체, 정신, 및 영으로 구성된 이 우주의 근본적인 근원은 영원하다--그것은 **만유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절대로 동등한 자들의 본성과 반응 안에 실존하고, 또한 그런 것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모두 **예수**의 말에 매우 경탄했으며, 그 때 **그리스인**이 떠나면서 말했다:“나는 인종적 우월감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종교 이외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아테네에서 체류한 것은 즐겁고 유익했으나, 사람들과 가진 접촉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당시 **아테네인**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 명성에 대해 지적으로 자만심을 갖거나, 정신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는데, **그리스**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던 과거 시절에 살았던, 열등한 노예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테네** 시민 중에서,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를 여전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6.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아테네를 떠난 여행자들은, **트로아**를 경유하여,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 수도인 **에베소**로 갔다. 그들은 도시에서 2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에베소인**의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아르테미스**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女神)이었고, 고대 **아나톨리아** 시대의 초기 어머니 여신이 존속돼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바친 거대한 사원에 전시된 조잡한 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가니드**는 형상들을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존경하도록 초기에 훈련된 것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고, **소아시아**의 이 다산(多産)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은으로 만든 작은 성물함(聖物函)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거기 머물던 셋째 날에, 그들은 항만 입구를 준설하는 것을 보려고 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갔다. 정오에,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우 낙심된 한 젊은 **페니키아인**과 이야기했으나,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상사로 승진을 임명받은 어떤 젊

and interassociated levels of the true unity of the real universe. Regardless of how divergent the universe phenomena of fact and value may appear to be, they are, after all, unified in the Supreme.

133:5.10 (1477.5) Reality of material existence attaches to unrecognized energy as well as to visible matter. When the energies of the universe are so slowed down that they acquire the requisite degree of motion, then, under favorable conditions, these same energies become mass. And forget not, the mind which can alone perceive the presence of apparent realities is itself also real. And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universe of energy-mass, mind, and spirit, is eternal — it exists and consists in the nature and reaction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absolute co-ordinates.

133:5.11 (1477.6) They were all more than astounded at the words of Jesus, and when the Greek took leave of them, he said: “At last my eyes have beheld a Jew who thinks something besides racial superiority and talks something besides religion.” And they retired for the night.

133:5.12 (1477.7) The sojourn in Athens was pleasant and profitable, but it was not particularly fruitful in its human contacts. Too many of the Athenians of that day were either intellectually proud of their reputation of another day or mentally stupid and ignorant, being the offspring of the inferior slaves of those earlier periods when there was glory in Greece and wisdom in the minds of its people. Even then, there were still many keen minds to be found among the citizens of Athens.

6. AT EPHESUS — DISCOURSE ON THE SOUL

133:6.1 (1477.8) On leaving Athens, the travelers went by way of Troas to Ephesus,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Asia. They made many trips out to the famous temple of Artemis of the Ephesians, about two miles from the city. Artemis was the most famous goddess of all Asia Minor and a perpetuation of the still earlier mother goddess of ancient Anatolian times. The crude idol exhibited in the enormous temple dedicated to her worship was reputed to have fallen from heaven. Not all of Ganid's early training to respect images as symbols of divinity had been eradicated, and he thought it best to purchase a little silver shrine in honor of this fertility goddess of Asia Minor. That night they talked at great length about the worship of things made with human hands.

133:6.2 (1478.1) On the third day of their stay they walked down by the river to observe the dredging of the harbor's mouth. At noon they talked with a young Phoenician who was homesick and much discouraged; but most of all he was envious of a

은이를 시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에게 위안의 말을 하면서, **히브리**의 옛 속담을 인용했다. “사람의 재능이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존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이 **지중해** 여행 동안 방문했던 모든 큰 도시 가운데 여기서 그들이 얻은 성과는, 훗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일에 가장 가치가 적었다. **그리스도교**가 **에베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였는데, 그는 여기서 2년 이상 살았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두란노** 학파가 대부분이었던 청중에게, 종교와 철학에 관해서 매일 밤 강의했다.

이 지역의 철학 학파와 관련된 한 진취적 사상가가 있었고, **예수**는 그와 몇 차례 유익한 회합을 가졌다. 이런 대화 도중에, **예수**는 “혼”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박식한 **그리스인**은 마침내 그에게, “혼”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는지 물었고, 대답은 이랬다:

“혼은 사람의, 자아_반사적이고, 진리를_분별하고, 영을_인식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을 동물 세계의 수준보다 높이 향상시킨다. 자아_의식은, 그 자체로 혼이 되지는 않는다. 도덕적 자아_의식은, 인간의 진정한 자아_실현이고 사람의 혼의 기초를 이루며, 혼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의 그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즉 **하나님**을 아는 역량과 그와 같이 되고자하는 충동이 혼의 특질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사고{思考}와 영적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침체된 혼은 죽어가는 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정신에 내주하고 있는 신성한 영과는 구별된다. 그 신성한 영은, 인간 정신의 첫 도덕적 활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것이 바로 혼이 탄생되는 사건이다.

“혼의 구원 또는 소멸은, 도덕적 의식이, 그와 관련된 불멸하는 영 재능과 영원히 연합해서, 생존하는 자격을 달성 했는가 못했는가에 달려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이 자아를_실현하는 영성화{靈性化}인데, 그렇게 함으로 생존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모든 형태의 혼적{魂的} 갈등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자아_의식과, 순수하게 지적인 자아_의식 사이에 조화가 부족해서 생긴다.

“인간의 혼은, 성숙되고 고상해지고 영성화됐을 때, 하늘의 상태로 가까워져 가며, 그 속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물질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개재{介在}하는 실제로서 점점 더 존재하게 돼간다. 인간의 진화하는 혼은, 물질을 연구하거나 영적 증명의 방법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보여주시는 더 어렵다. 물질 과학은 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순수한

certain young man who had received promotion over his head. Jesus spoke comforting words to him and quoted the olden Hebrew proverb: “A man's gift makes room for him and brings him before great men.”

133:6.3 (1478.2) Of all the large cities they visited on this tour of the Mediterranean, they here accomplished the least of value to the subsequent work of the Christian missionaries. Christianity secured its start in Ephesus largely through the efforts of Paul, who resided here more than two years, making tents for a living and conducting lectures on religion and philosophy each night in the main audience chamber of the school of Tyrannus.

133:6.4 (1478.3) There was a progressive thinker connected with this local school of philosophy, and Jesus had several profitable sessions with him. In the course of these talks Jesus had repeatedly used the word “soul.” This learned Greek finally asked him what he meant by “soul,” and he replied:

133:6.5 (1478.4) “The soul is the self-reflective, truth-discerning, and spirit-perceiving part of man which forever elevates the human being above the level of the animal world. Self-consciousness, in and of itself, is not the soul. Moral self-consciousness is true human self-realization and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the human soul, and the soul is that part of man which represents the potential survival value of human experience. Moral choice and spiritual attainment, the ability to know God and the urge to be like him,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l. The soul of man cannot exist apart from moral thinking and spiritual activity. A stagnant soul is a dying soul. But the soul of man is distinct from the divine spirit which dwells within the mind. The divine spirit arrives simultaneously with the first moral activity of the human mind, and that is the occasion of the birth of the soul.

133:6.6 (1478.5) “The saving or losing of a soul has to do with whether or not the moral consciousness attains survival status through eternal alliance with its associated immortal spirit endowment. Salvation is the spiritualization of the self-realization of the moral consciousness, which thereby becomes possessed of survival value. All forms of soul conflict consist in the lack of harmony between the moral, or spiritual, self-consciousness and the purely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133:6.7 (1478.6) “The human soul, when matured, ennobled, and spiritualized, approaches the heavenly status in that it comes near to being an entity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material self and the divine spirit. The evolving soul of a human being is difficult of description and more difficult of demonstration because it is not discoverable by the methods of

영_실험도 할 수 없다. 물질 과학과 영적 기준이 인간 혼의 실재{實在}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도덕 의식을 가진 필사자는 누구든지, **실재**하고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 즉 **자신의** 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키프러스에 체류함--정신에 관한 강론

여행자들은 **로데**에 잠시 들렀다가 곧 **키프러스**를 향해서 항해했다. 그들은 긴 해상{海上} 여행을 즐겼고, 육신을 충분히 쉬고 영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목적지인 그 섬에 도착했다.

그들의 **지중해** 여행이 거의 끝 무렵에 가까웠기 때문에, **키프러스** 방문에서는 단지 휴식하면서 즐길 계획이었다. 그들은 **바보**에 상륙했고, 가까운 산에서 몇 주간 지내기 위한 생필품을 곧바로 모으기 시작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건을 적당하게_실은 동물들과 함께, 산을 향해서 떠났다.

이 세 사람은 두 주 동안 매우 즐겁게 보냈는데, 어린 **가니드**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몹시 앓게 됐다. 그는 두 주 동안 심한 열로 고생했고, 가끔 헛소리도 했으며;**예수**와 **고노드**는 병자를 간호하기에 바빴다. **예수**는 능숙하고 부드럽게 소년을 돌봤고, 그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소년을 돌보는 모든 일에서 **예수**의 자상함과 능숙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인가{人家}에서 멀리 있었고, 소년의 병이 너무 심해서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산 속에서 소년이 회복되도록 돌보기에 최선을 다 할 뿐이었다.

가니드가 회복되던 3주 동안, **예수**는 그에게 자연과 자연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겼던 것은, 산을 배회하면서 소년이 질문하고 **예수**가 대답하는 것이었고, 소년의 아버지는 이 모든 실행에 감탄했다.

그 산에 머물렀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가니드**는 인간 정신의 기능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시간의 토의가 있는 후에 소년이 질문했다:“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이 고등동물보다 더 고귀한 자아_의식 형태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애야, 사람의 정신과 그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에 대해, 나는 이미 네게 많이 말했지만, 지금은 자아_의식이 하나의 **실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ither material investigation or spiritual proving. Material science cannot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soul, neither can pure spirit-testing. Notwithstanding the failure of both material science and spiritual standards to discover the existence of the human soul, every morally conscious mortal *knows* of the existence of his *soul* as a *real* and actual personal experience.”

7. THE SOJOURN AT CYPRUS — DISCOURSE ON MIND

133:7.1 (1479.1) Shortly the travelers set sail for Cyprus, stopping at Rhodes. They enjoyed the long water voyage and arrived at their island destination much rested in body and refreshed in spirit.

133:7.2 (1479.2) It was their plan to enjoy a period of real rest and play on this visit to Cyprus as their tour of the Mediterranean was drawing to a close. They landed at Paphos and at once began the assembly of supplies for their sojourn of several weeks in the near-by mountains. On the third day after their arrival they started for the hills with their well-loaded pack animals.

133:7.3 (1479.3) For two weeks the trio greatly enjoyed themselves, and then, without warning, young Ganid was suddenly taken grievously ill. For two weeks he suffered from a raging fever, oftentimes becoming delirious; both Jesus and Gonod were kept busy attending the sick boy. Jesus skillfully and tenderly cared for the lad, and the father was amazed by both the gentleness and adeptness manifested in all his ministry to the afflicted youth. They were far from human habitations, and the boy was too ill to be moved; so they prepared as best they could to nurse him back to health right there in the mountains.

133:7.4 (1479.4) During Ganid's convalescence of three weeks Jesus told him many interesting things about nature and her various moods. And what fun they had as they wandered over the mountains, the boy asking questions, Jesus answering them, and the father marveling at the whole performance.

133:7.5 (1479.5) The last week of their sojourn in the mountains Jesus and Ganid had a long talk on the functions of the human mind. After several hours of discussion the lad asked this question: “But, Teacher,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that man experiences a higher form of self-consciousness than do the higher animals?” And as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answered:

133:7.6 (1479.6) My son, I have already told you much about the mind of man and the divine spirit that lives therein, but now let me emphasize that self-

어떤 동물이든지, 자아를_의식하게 되면 원시인이 된다. 그런 달성은 인격아닌 에너지와 영을_느끼는 정신, 이 둘 사이의 작용을 조정함으로 이뤄지고, 바로 이 현상이, 한 절대 초점{焦點},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인간의 인격에게 증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관념은 단순히 감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관념은 인격있는 자아가 사려 깊은 해석을 감각에 덧붙인 것이며; 자아는 그가 가진 감각의 전체 합계 이상{以上}이다. 진화하는 자아성 안에는 통일로 접근하는 무엇이 비로소 생기고, 그 통일은 절대 통일의 일부분인 내주하는 현존으로부터 파생되는데, 동물에서_기원된 자아를_의식하는 정신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동물에 불과한 존재는 한때의 자아_의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은, 관련된 지각 인식과 그 기억을 생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인간이 지성적으로 돌이켜보고 해석해서 내린 결론 속에 나타나는 것 같은, 감지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이 통합된 육체적 체험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성향은, 어떤 동물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_의식이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 체험의 실체와 결합해서, 사람이 우주에서 잠재적 아들이 되게 하고 결국 그가 우주의 **최상의 통일**을 달성하게 됨을 예시{例示}한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단순한 이어지는 의식 상태들의 합계도 아니다. 의식을 분류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자아성이라는 명칭을 정당화시킬 만큼 충분한 통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통합되지 않은 그런 정신은, 인간 신분의 의식 수준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 의식한 것들을 결합하는 작용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면, 모든 인간의 정신은, 정신적 광란이라는 어떤 국면의, 통제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결합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오직 육체 감각에 대한 의식{意識}으로부터 형성된 인간 정신은, 영적 수준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이런 종류의 물질 정신은, 도덕 가치에 대한 감각에서 상당히 결여될 것이고,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안내 감각도 가질 수 없을 것인데, 이 안내 감각은, 시간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인격 통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고, 영원 세계에서 생존하는 인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인간 정신은 물질을 초월하는 특성을 일찍부터 나타내기 시작하며; 확실히 사려 깊은 인간 지능은 시간 제약에 완전히 묶여 있지는 않다. 개인들이 인생살이에서 이룩한 업적이 그토록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유전적 자질과 상이한 환경의 영향뿐 아니라, 자아가 성취한, 내주하는 **아버지**의 영과 통합을 이룬 정도{程度}를 가리키며, 이것은 자아가 얼마나 **아버지**의 영과 일치했는가를

consciousness is a reality. When any animal becomes self-conscious, it becomes a primitive man. Such an attainment results from a co-ordination of function between impersonal energy and spirit-conceiving mind, and it is this phenomenon which warrants the bestowal of an absolute focal point for the human personality, the spirit of the Father in heaven.

133:7.7 (1479.7) Ideas are not simply a record of sensations; ideas are sensations plus the refl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personal self; and the self is more than the sum of one's sensations. There begins to be something of an approach to unity in an evolving selfhood, and that unity is derived from the indwelling presence of a part of absolute unity which spiritually activates such a self-conscious animal-origin mind.

133:7.8 (1479.8) No mere animal could possess a time self-consciousness. Animals possess a physiological co-ordination of associated sensation-recognition and memory thereof, but none experience a meaningful recognition of sensation or exhibit a purposeful association of these combined physical experiences such as is manifested in the conclusions of intelligent and reflective human interpretations. And this fact of self-conscious existence, associated with the reality of his subsequent spiritual experience, constitutes man a potential son of the universe and foreshadows his eventual attainment of the Supreme Unity of the universe.

133:7.9 (1480.1) Neither is the human self merely the sum of the successive states of consciousness. Without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a consciousness sorter and associator there would not exist sufficient unity to warrant the designation of a selfhood. Such an ununified mind could hardly attain conscious levels of human status. If the associations of consciousness were just an accident, the minds of all men would then exhibit the uncontrolled and random associations of certain phases of mental madness.

133:7.10 (1480.2) A human mind, built up solely out of the consciousness of physical sensations, could never attain spiritual levels; this kind of material mind would be utterly lacking in a sense of moral values and would be without a guiding sense of spiritual dominance which is so essential to achieving harmonious personality unity in time, and which is inseparable from personality survival in eternity.

133:7.11 (1480.3) The human mind early begins to manifest qualities which are supermaterial; the truly reflective human intellect is not altogether bound by the limits of time. That individuals so differ in their life performances indicates, not only the varying endowments of heredity and the different influences of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degree of unification with the indwelling spirit of

재는 적도다.

인간 정신은 이중적 충성의 모순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 선과 악, 둘 다 섬기려고 애쓰는 체험은, 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준다. 한없이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된 정신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전심으로 헌신된 정신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통일을 파괴시키고 정신 분열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혼의 살아남는 성품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상한 열망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영적 이상{理想}과 타협함으로써 육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평화는, 참된 것에 대한 정복{征服}을 충실히 옹호함으로써 달성되고, 이런 승리는, 선{善}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악{惡}을 극복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들은 다음 날 **살라미스**를 향해 떠났고, 거기서 **시리아** 해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출항했다.

8.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로마**의 **시리아** 식민지 수도였고, 이곳에는 제국의 총독공관이 있었다. **안디옥**은 50만 인구의 도시였으며; 크기로는 제국에서 셋째였고, 사악함과 지독한 부도덕으로는 첫째였다. **고노드**가 상당히 많은 사업상 거래를 했으므로; **예수**와 **가니드**는 둘이서만 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다프네**의 작은 숲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이 도시의 모든 곳을 둘러봤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음란하기로 악명 높은 신전{神殿}을 방문했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사양했다. 그런 장면들이 **인도인**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히브리인**에게는 불쾌했다.

팔레스틴에 가까이 이르고 여행이 끝나감에 따라, **예수**는 침착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됐다. 그는 **안디옥**에서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으며; 그 도시도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가니드**는 왜 **안디옥**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냐는 많은 질문을 선생님에게 한 끝에, 결국 **예수**에게서 이런 대답을 듣게 됐다: “이 도시는 **팔레스틴**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언젠가 내가 여기에 다시 올 지도 모르겠다.”

가니드는 **안디옥**에서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 이 젊은이는 영민한 학생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고, **예수**의 교훈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실천하기 시작했다. **안디옥**에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는 한 **인도인**이 살았는데, 그가 너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불만까지 심해지게 돼서, 그를 내쫓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 **가니드**가 이 소식을 듣자, 아버지 사업장으로 가서, 동족인 그 사람과 오랫동안 논의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주어졌다고 느꼈다. **가니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 방면으로 그의 중

the Father which has been achieved by the self, the measure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one with the other.

133:7.12 (1480.4) The human mind does not well stand the conflict of double allegiance. It is a severe strain on the soul to undergo the experience of an effort to serve both good and evil. The supremely happy and efficiently unified mind is the one wholly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Unresolved conflicts destroy unity and may terminate in mind disruption. But the survival character of a soul is not fostered by attempting to secure peace of mind at any price, by the surrender of noble aspirations, and by the compromise of spiritual ideals; rather is such peace attained by the stalwart assertion of the triumph of that which is true, and this victory is achieved in the overcoming of evil with the potent force of good.

133:7.13 (1480.5) The next day they departed for Salamis, where they embarked for Antioch on the Syrian coast.

8. AT ANTIOCH

133:8.1 (1480.6) Antioch was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Syria, and here the imperial governor had his residence. Antioch had half a million inhabitants; it was the third city of the empire in size and the first in wickedness and flagrant immorality. Gonod had considerable business to transact; so Jesus and Ganid were much by themselves. They visited everything about this polyglot city except the grove of Daphne. Gonod and Ganid visited this notorious shrine of shame, but Jesus declined to accompany them. Such scenes were not so shocking to Indians, but they were repellent to an idealistic Hebrew.

133:8.2 (1480.7) Jesus became sober and reflective as he drew nearer Palestine and the end of their journey. He visited with few people in Antioch; he seldom went about in the city. After much questioning as to why his teacher manifested so little interest in Antioch, Ganid finally induced Jesus to say: “This city is not far from Palestine; maybe I shall come back here sometime.”

133:8.3 (1481.1) Ganid had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in Antioch. This young man had proved himself an apt pupil and already had begun to make practical use of some of Jesus’ teachings. There was a certain Indian connected with his father’s business in Antioch who had become so unpleasant and disgruntled that his dismissal had been considered. When Ganid heard this, he betook himself to his father’s place of business and held a long conference with his fellow countryman. This man felt he had been put at the wrong job. Ganid told him about the Father in

교적 견해를 넓혀줬다. 그러나 **가니드**가 말한 모든 것 가운데, **유대** 속담의 인용이 그에게 가장 효과 있었는데, 그 속담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이든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거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라.”

그들은 낙타로 여행하도록 짐을 준비한 후, **시돈**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3일 후에는 사막의 모래벌판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9.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隊商)여행은, 많이 여행한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되지 못했다. **가니드**는, 선생님이 20마리의 낙타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짐승을 손수 이끌고 가기로 자원하는 것을 본 후에 외쳤다. “**선생님**, 당신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있습니까?” **예수**는 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지런한 학생 앞에서 존경받지 못할 선생은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대 도시 **우르**를 향해 출발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우르**의 초기 역사에 매우 관심을 보였고, **수싸**의 유적과 전통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료됐으므로,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연구하기에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예수**를 설득할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 거기서 3주 더 머물렀다.

가니드가 지식, 지혜, 진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와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르**에서였다. 그는 **히브리** 현인(賢人)의 다음과 같은 말에 매우 매료됐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탐구한 모든 지식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품기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침내 이별할 날이 됐다. 그들은 모두 담대했고, 특히 젊은이가 그랬으나, 매우 힘들고 괴로운 체험이었다. 그들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으로는 용기를 가졌다. **가니드**는 선생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내가 다시 **다마스커스**에 오면,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적어도 당신께서 내게 이야기해주신 그분과 당신이 매우 닮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교훈을 기억하겠지만, 무엇보다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좀 더 낫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 위대한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평화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복주심이 항

heaven and in many ways expanded his views of religion. But of all that Ganid said, the quotation of a Hebrew proverb did the most good, and that word of wisdom was: “Whatso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that with all your might.”

133:8.4 (1481.2) After preparing their luggage for the camel caravan, they passed on down to Sidon and thence over to Damascus, and after three days they made ready for the long trek across the desert sands.

9. IN MESOPOTAMIA

133:9.1 (1481.3) The caravan trip across the desert was not a new experience for these much-traveled men. After Ganid had watched his teacher help with the loading of their twenty camels and observed him volunteer to drive their own animal, he exclaimed, “Teacher, is there anything that you cannot do?” Jesus only smiled, saying, “The teacher surely is not without honor in the eyes of a diligent pupil.” And so they set forth for the ancient city of Ur.

133:9.2 (1481.4) Jesus was much interested in the early history of Ur, the birthplace of Abraham, and he was equally fascinated with the ruins and traditions of Susa, so much so that Gonod and Ganid extended their stay in these parts three weeks in order to afford Jesus more time to conduct his investigations and also to provide the better opportunity to persuade him to go back to India with them.

133:9.3 (1481.5) It was at Ur that Ganid had a long talk with Jesus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wisdom, and truth. And he was greatly charmed with the saying of the Hebrew wise man: “Wisdom is the principal thing; therefore get wisdom. With all your quest for knowledge, get understanding. Exalt wisdom and she will promote you. She will bring you to honor if you will but embrace her.”

133:9.4 (1481.6) At last the day came for the separation. They were all brave, especially the lad, but it was a trying ordeal. They were tearful of eye but courageous of heart. In bidding his teacher farewell, Ganid said: “Farewell, Teacher, but not forever. When I come again to Damascus, I will look for you. I love you, for I think the Father in heaven must be something like you; at least I know you are much like what you have told me about him. I will remember your teaching, but most of all, I will never forget you.” Said the father, “Farewell to a great teacher, one who has made us better and helped us to know God.” And Jesus replied, “Peace be upon you, and may the blessing of the Father in heaven ever abide with you.” And Jesus stood on the shore and watched as the small boat carried them out to their anchored ship.

상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는 해변에 서서, 정박해있는 배를 향해 작은 배가 그들을 태우고 나가는 것을 바라봤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도**에서 온 친구들을 **카락스**에서 작별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그들은 나중에 **나사렛 예수**로 나타난 그가, 자신들이 방금 작별한 바로 이 친구--곧 그들의 선생 **예슈아**--였음을 이 세상에서는 전혀 몰랐다.

인도에서, 성장한 **가니드**는 유능한 아버지의 훌륭한 계승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며, 사랑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많은 고귀한 진리를 널리 전했다. **팔레스틴**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이상한 선생에 대한 소문을 **가니드**가 말년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의 복음과 자신의 **유대인** 선생님의 교훈에서 유사성을 발견했지만,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아들**의 생애에서:선생님**예슈아**의 선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장{章}이 끝나게 됐다.

Thus the Master left his friends from India at Charax, never to see them again in this world; nor were they, in this world, ever to know that the man who later appeared as Jesus of Nazareth was this same friend they had just taken leave of — Joshua their teacher.

133:9.5 (1481.7) In India, Ganid grew up to become an influential man, a worthy successor of his eminent father, and he spread abroad many of the noble truths which he had learned from Jesus, his beloved teacher. Later on in life, when Ganid heard of the strange teacher in Palestine who terminated his career on a cross, though he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gospel of this Son of Man and the teachings of his Jewish tutor, it never occurred to him that these two were actually the same person.

133:9.6 (1482.1) Thus ended that chapter in the life of the Son of Man which might be termed: *The mission of Joshua the teacher.*

제 134편. 과도기 시절

⇨ 133

유랜시아 책

13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4편
과도기 시절

섹션

소개

1. 서른 살 되던 해 (서기 24년)
2. 카스피로 가는 대상 여행
3. 우르미아 강연
4. 주권--신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
5. 정치적 주권
6. 법, 자유, 주권
7. 서른한 살 되던 해 (서기 25년)
8. 헤르몬 산에 체류함
9. 기다리던 시절

소개

지중해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및 거쳐 간 나라들을 면밀히 연구했고, 이 세상에서 보낼 나머지 생애에 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팔레스틴**에서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도록 마련한 계획을 전에 충분히 고려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정했으며, 따라서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공적{公的} 선생으로서 필생과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으며; 아버지 **요셉**이 소속된 민족의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기 위한 계획을 비로소 수립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했다.

예수는 몸소 겪은 인간적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 생애를 마무리하는 무대를 설치하고 마지막 장면을 상연하기에, 전체 **로마** 세계에서 **팔레스틴**이 가장 적합한 곳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계획과, 자신이 태어난 **팔레스틴**의 **유대인** 및 이방인 가운데서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계시하는 계획표에, 처음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됐다. 그는 무력한 아기로써 인간의 체험을 시작한 바로 그 땅에서, 이 세상의 생애를 끝내고 필사자로서 실존하는 생애를 마

PAPER 134

THE TRANSITION YEA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hirtieth Year (A.D. 24)
2.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3. The Urmia Lectures
4. Sovereignty — Divine and Human
5. Political Sovereignty
6. Law, Liberty, and Sovereignty
7. The Thirty-First Year (A.D. 25)
8. The Sojourn on Mount Hermon
9. The Time of Waiting

INTRODUCTION

134:0.1 (1483.1) DURING the Mediterranean journey Jesus had carefully studied the people he met and the countries through which he passed, and at about this time he reached his final decision as to the remainder of his life on earth. He had fully considered and now finally approved the plan which provided that he be born of Jewish parents in Palestine, and he therefore deliberately returned to Galilee to await the beginning of his lifework as a public teacher of truth; he began to lay plans for a public career in the land of his father Joseph's people, and he did this of his own free will.

134:0.2 (1483.2) Jesus had found out through personal and human experience that Palestine was the best place in all the Roman world wherein to set forth the closing chapters, and to enact the final scenes, of his life on earth. For the first time he became ful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of openly manifesting his true nature and of revealing his divine identity among the Jews and gentiles of his native Palestine. He definitely decided to finish his life on earth and to complete his career of mortal

무리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생애는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시작됐고, 그는 일생을 **팔레스틴의 유대인** 가운데서 끝내기로 선택했다.

1. 서른 살 되던 해 (서기 24년)

예수는 **카락스**에서 (서기 23년 12월에) **고노드** 및 **가니드**와 헤어진 후, **우르**를 경유해서 **바빌론**으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막 대상(隊商)과 합세했다. **다마스쿠스**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단지 몇 시간 **가버나움**에 들렀고, 거기서 **세베대** 가족을 만났다. 그는 거기서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는 **세베대**의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가끔 그를 대신해 일하기 위하여 얼마 전부터 와있었다. **예수**는 **야고보**와 (역시 우연히 **가버나움**에 왔던) **유다**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요한 세베대**가 그럭저럭 구입한 작은 집을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준 다음, **나사렛**으로 갔다.

예수는 **지중해** 여행을 마쳤을 때, 공적(公的)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받았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세베대**, 그리고 이 특별한 여행 도중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세상은 그가 이런 여행을 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면서 지냈다고 항상 믿었다. **예수**는 이런 믿음을 한 번도 확인시키지 않았고, 그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다.

예수는 **나사렛**에 머물던 몇 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동생 **요셉**과 수리소에 함께 있으면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마리아**와 **룻**에게 쏟았다. **룻**은 그때 거의 열다섯 살이었고, 소녀가 된 이래,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몬과 **유다**는 언제든지 결혼할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의 허락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만행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야고보**를 가장(家長)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막상 결혼이 임박하자 **예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는 서기 24년 3월 초순에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모두 결혼하게 됐으며; 가장 어린 **룻**만 **마리아**와 함께 집에 남게 됐다.

예수는 자기 가족 가운데 개개인과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에는 거의 말이 없었으므로, 가족은 자기들끼리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는 특히

existence in the same land in which he entered the human experience as a helpless babe. His Urantia career began among the Jews in Palestine, and he chose to terminate his life in Palestine and among the Jews.

1. THE THIRTIETH YEAR (A.D. 24)

134:1.1 (1483.3) After taking leave of Gonod and Ganid at Charax (in December of A.D. 23), Jesus returned by way of Ur to Babylon, where he joined a desert caravan that was on its way to Damascus. From Damascus he went to Nazareth, stopping only a few hours at Capernaum, where he paused to call on Zebedee's family. There he met his brother James, who had sometime previously come over to work in his place in Zebedee's boatshop. After talking with James and Jude (who also chanced to be in Capernaum) and after turning over to his brother James the little house which John Zebedee had managed to buy, Jesus went on to Nazareth.

134:1.2 (1483.4) At the end of his Mediterranean journey Jesus had received sufficient money to meet his living expenses almost up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But aside from Zebedee of Capernaum and the people whom he met on this extraordinary trip, the world never knew that he made this journey. His family always believed that he spent this time in study at Alexandria. Jesus never confirmed these beliefs, neither did he make open denial of such misunderstandings.

134:1.3 (1483.5) During his stay of a few weeks at Nazareth, Jesus visited with his family and friends, spent some time at the repair shop with his brother Joseph, but devoted most of his attention to Mary and Ruth. Ruth was then nearly fifteen years old, and this was Jesus' first opportunity to have long talks with her since she had become a young woman.

134:1.4 (1484.1) Both Simon and Jude had for some time wanted to get married, but they had disliked to do this without Jesus' consent; accordingly they had postponed these events, hoping for their eldest brother's return. Though they all regarded James as the head of the family in most matters, when it came to getting married, they wanted the blessing of Jesus. So Simon and Jude were married at a double wedding in early March of this year, A.D. 24. All the older children were now married; only Ruth, the youngest, remained at home with Mary.

134:1.5 (1484.2) Jesus visited with the individual members of his family quite normally and naturally, but when they were all together, he had so little to say that they remarked about it among

만아들의 비정상적으로 특이한 습성 때문에 당황했다.

예수가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이 도시를 지나가던 큰 대상{隊商} 안내자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됐고, **예수**는 외국어에 능통했으므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했다. **예수**는 이 여행으로 인해 1년간 집을 비워야 했고, 남동생들이 모두 결혼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룻**뿐이었으므로, 가족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에 **야고보**에게 넘겨줬던 **가버나움** 집으로 어머니와 **룻**이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예수**가 대상과 함께 떠난 며칠 뒤에, **마리아**와 **룻**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했고, 거기서 그들은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예수**가 제공한 집에서 살았다.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 고향집으로 들어왔다.

이 해는 **사람의 아들**의 내적 체험에서 더욱 특이한 몇 해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의 인간 정신과 내주하는 **조율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 당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큰 사건들을 위해서, **조율사**는 생각을 재조직하고 정신을 연습시키기에 적극 관여해 왔었다. **예수**의 인격은, 세상을 향한 그의 태도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기간은 사이에_낀 시기, 즉 사람으로 출현하는 **하나님**으로서 일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출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생애를 완성시킬 준비를 이제 갖추는, 그 존재가 거치는 과도기 단계였다.

2. 카스피로 가는 대상 여행

예수가 나사렛을 출발하여 대상{隊商}과 함께 **카스피 해**{海}로 여행을 떠난 것은 서기 24년 4월 1일이었다. **예수**가 안내자로서 합세했던 그 대상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마스쿠스**와 **우르미아 호수**를 경유하고, **앗수르**, **메디아**, **파르티아**를 거쳐서 남부 **카스피 해** 지역으로 갔다. 그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기까지 꼬박 1년 걸렸다.

예수에게 이 대상{隊商}여행은 탐구와 개인 사역을 이루는 또 다른 모험이었다. 대상 일행--곧 승객, 안내원, 및 낙타부리는 자들--과 그는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 대상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살고 있던 많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은, **예수**와 접촉한 결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평범한 대상을 이끄는 비범한 안내자로 보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역했던 이 기회를 포착했던 사람들 전부가 덕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만나서 이야기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더 나은 자연스런 여생{餘生}을 보냈다.

예수의 전체 세계여행 가운데 이 **카스피 해**

themselves. Mary especially was disconcerted by this unusually peculiar behavior of her first-born son.

134:1.6 (1484.3) About the time Jesus was preparing to leave Nazareth, the conductor of a large caravan which was passing through the city was taken violently ill, and Jesus, being a linguist, volunteered to take his place. Since this trip would necessitate his absence for a year, and inasmuch as all his brothers were married and his mother was living at home with Ruth, Jesus called a family conference at which he proposed that his mother and Ruth go to Capernaum to live in the home which he had so recently given to James. Accordingly, a few days after Jesus left with the caravan, Mary and Ruth moved to Capernaum, where they lived for the rest of Mary's life in the home that Jesus had provided. Joseph and his family moved into the old Nazareth home.

134:1.7 (1484.4) This was one of the more unusual years in the inner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great progress was made in effecting working harmony between his human mind and the indwelling Adjuster. The Adjuster had been actively engaged in reorganizing the thinking and in rehearsing the mind for the great events which were in the not then distant future. The personality of Jesus was preparing for his great change in attitude toward the world. These were the in-between times, the transition stage of that being who began life as God appearing as man, and who was now making ready to complete his earth career as man appearing as God.

2.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134:2.1 (1484.5) It was the first of April, A.D. 24, when Jesus left Nazareth on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Sea region. The caravan which Jesus joined as its conductor was going from Jerusalem by way of Damascus and Lake Urmia through Assyria, Media, and Parthia to the southeastern Caspian Sea region. It was a full year before he returned from this journey.

134:2.2 (1484.6) For Jesus this caravan trip was another adventure of exploration and personal ministry. He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ith his caravan family — passengers, guards, and camel drivers. Scores of men, women, and children residing along the route followed by the caravan lived richer lives as a result of their contact with Jesus, to them, the extraordinary conductor of a commonplace caravan. Not all who enjoyed these occasions of his personal ministry profited thereby, but the vast majority of those who met and talked with him were made better for the remainder of their natural lives.

134:2.3 (1484.7) Of all his world travels this Caspian

여행이 그를 **동양**에 가장 가깝게 가도록 했고, **극동지방**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했다. 그는 홍인종을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살던 모든 종족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가졌다. 그는, 이런 여러 다른 인종은 물론, 혼합된 인종 각각에게 개인적인 보살핌을 똑같이 베풀었고, 그들 모두는 **예수**가 가져다 준, 생생한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 **극서지방**에서 온 **유럽인**이 나 **극동지방**에서 온 **아시아인**은, 희망과 영생을 전하는 그의 말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 가운데서 그토록 우아하게 함께 살았던 사랑의 봉사과 영적 보살핌으로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대상 여행은 모든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 생애에서 가장 흥미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가 이 해 동안 행정이 자격으로 활동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과 대상 무리를 이루고 있던 여행자들의 안전한 인도를 책임 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신실하게, 능률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카스피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우르미아 호수**에서 안내자 자리를 그만두고, 2주 약간 넘게 거기에 머물렀다. 그는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대상 대열에 승객으로 합세하여 돌아갔는데, 거기서 낙타 주인이 그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대상과 함께 여행해서, 서기 25년 4월 1일,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는 **나사렛**을 더 이상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버나움**이, **예수**, **야고보**, **마리아**, 그리고 **룻**의 고향이 됐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세베대의** 집에서 지냈다.

Sea trip carried Jesus nearest to the Orient and enabled him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ar-Eastern peoples. He made intimate and personal contact with every one of the surviving races of Urantia excepting the red. He equally enjoyed his personal ministry to each of these varied races and blended peoples, and all of them were receptive to the living truth which he brought them. The Europeans from the Far West and the Asiatics from the Far East alike gave attention to his words of hope and eternal life and were equally influenced by the life of loving service and spiritual ministry which he so graciously lived among them.

134:2.4 (1485.1) The caravan trip was successful in every way. This was a most interesting episode in the human life of Jesus, for he functioned during this year in an executive capacity, being responsible for the material intrusted to his charge and for the safe conduct of the travelers making up the caravan party. And he most faithfully, efficiently, and wisely discharged his multiple duties.

134:2.5 (1485.2) On the return from the Caspian region, Jesus gave up the direction of the caravan at Lake Urmia, where he tarried for slightly over two weeks. He returned as a passenger with a later caravan to Damascus, where the owners of the camels besought him to remain in their service. Declining this offer, he journeyed on with the caravan train to Capernaum, arriving the first of April, A.D. 25. No longer did he regard Nazareth as his home. Capernaum had become the home of Jesus, James, Mary, and Ruth. But Jesus never again lived with his family; when in Capernaum he made his home with the Zebedees.

3. 우르미아 강연

카스피 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우르미아 호수** 서쪽 해안에 자리잡은 오래된 **페르시아** 도시 **우르미아**에서 며칠 머물렀다. **우르미아** 근처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에, 어떤 큰 건물이--곧 원형극장식 강연 장소가--“종교의 영”에게 봉헌돼 있었다. 사실 이 건물은 종교에 관한 철학을 다루는 사원{寺院}이었다.

우르미아 시민인 어느 부유한 상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종교 사원을 설립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심보이톤**이었고, 그의 조상 중에는 많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었다.

이 종교 학교의 강의와 토의는, 주 중에 매일 오전 열시부터 시작했다. 오후 수업은 세 시에 시작했고, 저녁 토론회는 여덟 시에 열렸다. **심보이톤** 또는 그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가르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이 수업의 사회를 항상 맡았다. 이렇게 독특한 종교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3. THE URMIA LECTURES

134:3.1 (1485.3) On the way to the Caspian Sea, Jesus had stopped several days for rest and recuperation at the old Persian city of Urmia on the western shores of Lake Urmia. On the largest of a group of islands situated a short distance offshore near Urmia was located a large building — a lecture amphitheater — dedicated to the “spirit of religion.” This structure was really a temple of the philosophy of religions.

134:3.2 (1485.4) This temple of religion had been built by a wealthy merchant citizen of Urmia and his three sons. This man was Cymboyton, and he numbered among his ancestors many diverse peoples.

134:3.3 (1485.5) The lectures and discussions in this school of religion began at ten o'clock every morning in the week. The afternoon sessions started at three o'clock, and the evening debates opened at eight o'clock. Cymboyton or one of his three sons always presided at these sessions of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결코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예수는 이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고, 그가 **우르미아**를 떠나기 전에, **심보이톤**은 **예수**가 돌아가는 길에 2주간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사람들의 형제관계**”라는 주제로 스물네 번의 강의를 하도록, 그리고 특히 그의 강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제관계에 대해, 질문, 토의, 및 논쟁을 하는 열두 번의 저녁 수업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예수**는 돌아가는 길에 **우르미아**에 들려서 이 강의를 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주님**의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었고 형식을 갖췄다.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해, 이 강의와 토의에서처럼, 그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강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들**”에 관한 것이었다.

종교 철학을 위한 이 사원의 교수진은, 30개 이상의 종교와 종파를 대표했다. 각 종교 집단이 이 선생들을 뽑고, 지원하고, 전적으로 승인했다. 이 무렵에는 75명의 선생이 교수진으로 활동했고, 그들은 각 집마다 열두 명이 함께 사는 사택에서 생활했다. 이 집단은 새 달{月}이 올 때마다 제비뽑기로 교체됐다. 아량이 넓지 못하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하거나, 집단을 순조롭게 운영하기에 방해되는 다른 어떤 경향이든지 나타내는 경우에, 법을 위반한 그 선생은 즉시 간단하게 해직됐다. 그 사람은 아무 행사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게 됐고, 대기해 있던 다른 사람이 곧 그 자리에 임명되곤 했다.

다양한 종교에 속한 이 선생들은, 이 생애와 다음 생애에 대한 근본 사항들에서, 각자의 종교가 서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적용됐는데, 모든 선생은 **하나님**--곧 어떤 종류의 최고 **신격**--을 인식하는 종교를 대표해야 했다. 교수진 가운데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도 대표하지 않는 독립된 다섯 명의 선생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독립된 선생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됐다.

[우리 중도자들이 **예수**의 **우르미아** 교훈의 요지를 처음 준비했을 때, **유란시아 계시**에 이런 교훈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해, 교회 스라빔과 진보{進歩} 스라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20세기에 널리 보급돼 있는 종교와 인간 정부들 상황이, **예수** 당시에 퍼져있던 그런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들에 관한 **주님**의 **우르미아** 교훈을, 20세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세상 기능에 적용하기는

teaching, discussion, and debate. The founder of this unique school of religions lived and died without ever revealing his personal religious beliefs.

134:3.4 (1485.6) On several occasions Jesus participated in these discussions, and before he left Urmia, Cymboyton arranged with Jesus to sojourn with them for two weeks on his return trip and give twenty-four lectures on “The Brotherhood of Men,” and to conduct twelve evening sessions of questions, discussions, and debates on his lectures in particular and on the brotherhood of men in general.

134:3.5 (1485.7) In accordance with this arrangement, Jesus stopped off on the return trip and delivered these lectures. This was the most systematic and formal of all the Master’s teaching on Urantia. Never before or after did he say so much on one subject as was contained in these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he brotherhood of men. In reality these lectures were on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s of Men.”

134:3.6 (1486.1) More than thirty religions and religious cults were represented on the faculty of this temple of religious philosophy. These teachers were chosen, supported, and fully accredited by their respective religious groups. At this time there were about seventy-five teachers on the faculty, and they lived in cottages each accommodating about a dozen persons. Every new moon these groups were changed by the casting of lots. Intolerance, a contentious spirit, or any other disposition to interfere with the smooth running of the community would bring about the prompt and summary dismissal of the offending teacher. He would be unceremoniously dismissed, and his alternate in waiting would be immediately installed in his place.

134:3.7 (1486.2) These teachers of the various religions made a great effort to show how similar their religions were in regard to the fundamental things of this life and the next. There was but one doctrine which had to be accepted in order to gain a seat on this faculty — every teacher must represent a religion which recognized God — some sort of supreme Deity. There were five independent teachers on the faculty who did not represent any organized religion, and it was as such an independent teacher that Jesus appeared before them.

134:3.8 (1486.3) [When we, the midwayers, first prepared the summary of Jesus’ teachings at Urmia, there arose a disagreement between the seraphim of the churches and the seraphim of progress as to the wisdom of including these teachings in the Urantia Revelation. Condit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prevailing in both religion and human governments, are so different from those prevailing in Jesus’ day that it was indeed difficult

정말로 어렵다. 우리는 행성정부의 이 두 스라빔 집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교훈에 대한 서술문{敍述文}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議長}은,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맞도록, **주님**의 **우르미아** 교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준비하라고, 우리 전체 인원 중에서 세 명을 임명하여 구성된 위원회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2차 중도자인 우리 세 명은, **예수**의 교훈을 그렇게 각색하는 일을 마무리했는데, 현 시대의 세상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그가 발표한 말씀을 다시 고쳐 썼으며, 우리는 지금,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의 감수{監修}를 받은 그대로, 이 서술문을 발표한다.]

to adapt the Master's teachings at Urmia to the problem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s of men as these world functions are existent in the twentieth century. We were never able to formulate a statement of the Master's teachings which was acceptable to both groups of these seraphim of planetary government. Finally, the Melchizedek chairman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appointed a commission of three of our number to prepare our view of the Master's Urmia teachings as adapted to twentieth-century religious and political conditions on Urantia. Accordingly, we three secondary midwayers completed such an adaptation of Jesus' teachings, restating his pronouncements as we would apply them to present-day world conditions, and we now present these statements as they stand after having been edited by the Melchizedek chairman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4. 주권--신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유래한다--**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 전부를 신성하게 사랑하신다.

하늘 나라, 즉 신{神}의 정부는 신이 주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다--**하나님**은 영{靈}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 나라는 영적이다. 하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적이지도 않으며;**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다.

다른 종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주권{主權}을 인정한다면, 그런 모든 종교는 평화를 누린다. 한 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비해 독점적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에만, 그런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종교 신자를 겁 없이 박해할 것이다.

종교적 평화는--곧 형제관계는--, 모든 종교가 성직{聖職}의 모든 권위를 기꺼이 완전히 버리고, 영적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전부 양도하지 않는 한,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주권자시다.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적 주권{主權}을, 초인적 수준, 즉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너희는 종교 전쟁 없이 종교들 가운데 평등을(곧 종교적 자유를) 유지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 나라는, (반드시 확일적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적 통일을 창조하게 될 것인데, 그런 종교 신자{信者}들로 구성된 모든 종교 집단이, 성직{聖職}의 권위--곧 종교의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4. SOVEREIGNTY — DIVINE AND HUMAN

134:4.1 (1486.4) The brotherhood of men is founded on the fatherhood of God. The family of God is derived from the love of God — God is love. God the Father divinely loves his children, all of them.

134:4.2 (1486.5) The kingdom of heaven, the divine government, is founded on the fact of divine sovereignty — God is spirit. Since God is spirit, this kingdom is spiritual. The kingdom of heaven is neither material nor merely intellectual; it is a spiritu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134:4.3 (1486.6) If different religions recognize the spirit sovereignty of God the Father, then will all such religions remain at peace. Only when one religion assumes that it is in some way superior to all others, and that it possesses exclusive authority over other religions, will such a religion presume to be intolerant of other religions or dare to persecute other religious believers.

134:4.4 (1487.1) Religious peace — brotherhood — can never exist unless all religions are willing to completely divest themselves of all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fully surrender all concept of spiritual sovereignty. God alone is spirit sovereign.

134:4.5 (1487.2) You cannot have equality among religions (religious liberty) without having religious wars unless all religions consent to the transfer of all religious sovereignty to some superhuman level, to God himself.

134:4.6 (1487.3)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will create religious unity (not necessarily uniformity) because any and all religious groups composed of such religious believers will be free from all notion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 religious sovereignty.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 자아의 단편(斷片)을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도록 주신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늘 나라에는, 계급제도, 계층, 사회 수준, 또는 경제 집단 등이 전혀 없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 주권(主權)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이뤄지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이뤄지는 대신, 종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 종교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스스로를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자유의지 존재들은, 어떤 초월주권, 즉 자신보다 위에 있는 더 높은 권위에 자신들이 종속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다른 사람과 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과 권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평등의 개념은, 초월주권의 어떤 전면통제 영향력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르미아 종교인들은 종교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모든 관념을 완전히 양도해 왔으므로, 비교적 평화스럽고 편안하게 함께 살았다. 영적으로는,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그들 모두 믿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완전하고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그들의 최고 사회자--곧 **심보이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두, 동료 선생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 잘 알았다. 신성한 호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종교 주권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모든 종교 집단이 아낌없이 양도하기 전에는, 영구한 종교적 평화를 **유란시아**에서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최상의 뜻이 될 때, 사람은 종교적 형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종교적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

5. 정치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이지만--곧 오직 그 후에 세상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써 출현된 그에 관한 종교로 인해 복잡해졌을 뿐이지만, 정치적 주권에 관해서 그가 제시한 것들은, 지난 1,900여 년 동안 국가 생존기간의 정치적 진화로 인해 대단히 복잡해졌다. **예수** 시절에는 단지 두 개의 세계적 강국--곧 **서방의 로마 제국**과 **동방의 한 제국**--이 있었고, 이 두 제국은, **파르티아** 왕국과 **카스피** 및 **투루케스탄** 지역의 땅들이 사이에 있음으로써 매우 멀리 분리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정치적 주권에 관한 **주님**의 교훈의 취지로부터 더 광범하게 동떨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교훈이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정치적 주권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는, 특히 위급한 단계에 적용되는 대로, 그런 교훈의 의미를 서술해 보려고 시도했다.]

134:4.7 (1487.4) God is spirit, and God gives a fragment of his spirit self to dwell in the heart of man. Spiritually, all men are equal. The kingdom of heaven is free from castes, classes, social levels, and economic groups. You are all brethren.

134:4.8 (1487.5) But the moment you lose sight of the spirit sovereignty of God the Father, some one religion will begin to assert its superiority over other religions; and then, instead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there will start dissensions, recriminations, even religious wars, at least wars among religionists.

134:4.9 (1487.6) Freewill beings who regard themselves as equals, unless they mutually acknowledge themselves as subject to some supersovereignty, some authority over and above themselves, sooner or later are tempted to try out their ability to gain power and authority over other persons and groups. The concept of equality never brings peace except in the mutual recognition of some overcontrolling influence of supersovereignty.

134:4.10 (1487.7) The Urmia religionists lived together in comparative peace and tranquillity because they had fully surrendered all their notions of religious sovereignty. Spiritually, they all believed in a sovereign God; socially, full and unchallengeable authority rested in their presiding head — Cymboyton. They well knew what would happen to any teacher who assumed to lord it over his fellow teachers. There can be no lasting religious peace on Urantia until all religious groups freely surrender all their notions of divine favor, chosen people, and religious sovereignty. Only when God the Father becomes supreme will men become religious brothers and live together in religious peace on earth.

5. POLITICAL SOVEREIGNTY

134:5.1 (1487.8) [While the Master's teaching concerning the sovereignty of God is a truth — only complicated by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the religion about him among the world's religions — his presentations concerning political sovereignty are vastly complicated by the political evolution of nation life during the last nineteen hundred years and more. In the times of Jesus there were only two great world powers — the Roman Empire in the West and the Han Empire in the East — and these were widely separated by the Parthian kingdom and other intervening lands of the Caspian and Turkestan regions. We have, therefore, in the following presentation departed more widely from the substance of the Master's teachings at Urmia concerning political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attempting to depict the import of such teachings as they are

국가가 무제한 주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개념에 국가들이 집착하는 한, **유란시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거주 세계에는 오직 두 수준의 상대적 주권만 있는데: 필사자 개인의 영적 자유의지와, 인류 전체의 집단적 주권이다. 개별 인간 수준과 전체 인류 수준 사이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연합도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개인 및 행성 전체 합계--곧 사람과 인류--의 복지와 안녕 그리고 진보를 향상{向上}시키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종교 교사들은, 끼어있거나 중간에 있는 모든 영적 충성심보다 **하나님**의 영적 주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집권자들은, **지고자**께서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깨달을 것이다.

사람의 나라들에서 이뤄지는 **지고자**의 통치는, 특별하게 혜택 받는 어떤 필사자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민족"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지고자**, 즉 정치 진화에 대한 전면통제관들의 통치는, 가장 긴 세월에 가장 많은 숫자의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주권은 권력이고, 권력은 조직함으로 자란다. 정치 권력을 가진 조직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한데, 인류 전체의 계속_확장되는 부분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정치 조직의 성장은, 자연스런 정치 권력의 초기 조직과--곧 가족과--, --온 인류의, 온 인류에 의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정치적 성장의 최종 완성사이에 있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가족 집단에 있는 부모의 권력을 비롯하여, 혈연관계인 가족들이 씨족으로 뭉침에 따라서, 정치 주권은 조직함으로 발전하는데, 이 씨족들은 다시 여러 이유로 부족{部族} 단위로--곧 혈연관계를 초월하는 정치 집단으로-- 뭉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무역, 상업, 및 정복을 통해서, 부족들은 한 나라로 통합되고, 때때로 제국이 여러 나라를 통합한다.

작은 집단들로부터 큰 집단으로 주권이 옮겨가면서, 전쟁은 점점 줄어든다. 즉, 작은 국가 간의 국지전{局地戰}이 줄어드는 반면, 국가들이 휘두르는 주권이 점점 커갈수록 더 큰 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윽고, 온 세상이 탐험되고 차지되면, 국가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서 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 이런 엄청난 주권을 소유한 나라들의 국경이 서로 이웃하게 되면, 단지 바다만이 그들을 나눠 놓게 되면, 그때 세계대전{世界大戰}이 일어날 무대가 꾸며질 것이다. 소위 주권 국가들은, 갈

applicable to the peculiarly critical stage of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134:5.2 (1487.9) War on Urantia will never end so long as nations cling to the illusive notions of unlimited national sovereignty. There are only two levels of relative sovereignty on an inhabited world: the spiritual free will of the individual mortal and the collective sovereignty of mankind as a whole. Between the level of the individual human being and the level of the total of mankind, all groupings and associations are relative, transitory, and of value only in so far as they enhance the welfare, well-being, and progress of the individual and the planetary grand total — man and mankind.

134:5.3 (1488.1) Religious teachers must always remember that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God overrides all intervening and intermediate spiritual loyalties. Someday civil rulers will learn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134:5.4 (1488.2) This rule of the Most Highs in the kingdoms of men is not for the especial benefit of any especially favored group of mortal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chosen people." The rule of the Most Highs, the overcontrollers of political evolution, is a rule designed to foster the greatest good to the greatest number of *all* men and for the greatest length of time.

134:5.5 (1488.3) Sovereignty is power and it grows by organization. This growth of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is good and proper, for it tends to encompass ever-widening segments of the total of mankind. But this same growth of political organizations creates a problem at every intervening stage between the initial and natur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 the family — and the final consummation of political growth — the government of all mankind, by all mankind, and for all mankind.

134:5.6 (1488.4) Starting out with parental power in the family group, political sovereignty evolves by organization as families overlap into consanguineous clans which become united, for various reasons, into tribal units — superconsanguineous political groupings. And then, by trade, commerce, and conquest, tribes become unified as a nation, while nations themselves sometimes become unified by empire.

134:5.7 (1488.5) As sovereignty passes from smaller groups to larger groups, wars are lessened. That is, minor wars between smaller nations are lessened, but the potential for greater wars is increased as the nations wielding sovereignty become larger and larger. Presently, when all the world has been explored and occupied, when nations are few, strong, and powerful, when these great and supposedly sovereign nations come to touch borders, when only oceans separate them,

등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는, 서로 사귄 수 없다.

가족으로부터 전체 인류로 확대되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재하는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 관성_저항에 있다. 가족들은 경우에 따라 자기 씨족에게 도전해 왔고, 한편 씨족들과 부족들은 지역 국가의 주권을 종종 타도해 왔다. 각각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주권의 진화는, 정치 조직 속에 전에 있었던 발전의 “발판이 되는 단계들”로 인해,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방해 받는다(그리고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인간의 충성심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심이, 부족_초월체--곧 지역 국가--의 진화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지역 국가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그 충성심(곧 애국심)이, 전체 인류 정부의 진화 발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개인이, 다음에는 부족 및 더 큰 집단과 갖는 관계에서 가족과 씨족들이, 자결주의(自決主義)를 포기함으로써 창출된다. 소규모로부터 좀 더 큰 정치 집단으로 자결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명** 왕조와 **몽골** 왕조가 설립된 후에, **동방**에서 대체로 줄어들지 않고 진행돼 왔다. 이것이 **서방**에서는 1,000년이 넘도록, 바로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됐는데, 이때 **유럽**에서 수많은 작은 집단이 사라졌던 정치적 주권을 다시 수렴함으로써, 유감스런 역행 운동이 이 정상적인 경향을 일시 거꾸로 뒤집어놓았다.

유란시아는, 소위 주권 국가들이 자체의 주권 능력을 사람의 형제관계--곧 인류의 정부--의 권력에 총명하게 완전히 양도하기 전에는, 영구적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국제주의는--곧 **국가들의 연맹**은--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 없다. 국가들의 세계적 연합은, 소규모 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되겠지만, 세계전쟁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 4개, 또는 5개의 초강대국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하나가 **연맹**에서 탈퇴하고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국가 주권이라는 망상적 병균에 감염된 채 남아있는 한, 너희는 전쟁으로 치닫는 나라들을 막을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국제경찰의 힘은, 여러 작은 전쟁을 예방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부 사이의 갈등인 큰 전쟁을 막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주권을 갖는 국가들(곧 강대국)의 숫

then will the stage be set for major wars, world-wide conflicts. So-called sovereign nations cannot rub elbows without generating conflicts and eventuating wars.

134:5.8 (1488.6) The difficult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from the family to all mankind, lies in the inertia-resistance exhibited on all intervening levels. Families have, on occasion, defied their clan, while clans and tribes have often been subversive of the sovereignty of the territorial state. Each new and forward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is (and has always been) embarrassed and hampered by the “scaffolding stages” of the previous developments in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is is true because human loyalties, once mobilized, are hard to change. The same loyalty which makes possible the evolution of the tribe, makes difficult the evolution of the supertribe — the territorial state. And the same loyalty (patriotism) which makes possible the evolu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vastly complicates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of all mankind.

134:5.9 (1488.7) Political sovereignty is created out of the surrender of self-determinism, first by the individual within the family and then by the families and clans in relation to the tribe and larger groupings. This progressive transfer of self-determination from the smaller to ever larger political organizations has generally proceeded unabated in the Ea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g and the Mogul dynasties. In the West it obtained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right on down to the end of the World War, when an unfortunate retrograde movement temporarily reversed this normal trend by re-establishing the submerged political sovereignty of numerous small groups in Europe.

134:5.10 (1489.1) Urantia will not enjoy lasting peace until the so-called sovereign nations intelligently and fully surrender their sovereign powers into the hands of the brotherhood of men — mankind government. Internationalism — Leagues of Nations — can never bring permanent peace to mankind. World-wide confederations of nations will effectively prevent minor wars and acceptably control the smaller nations, but they will not prevent world wars nor control the three, four, or five most powerful governments. In the face of real conflicts, one of these world powers will withdraw from the League and declare war. You cannot prevent nations going to war as long as they remain infected with the delusional virus of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ism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 international police force will prevent many minor wars, but it will not be effective in preventing major wars, conflicts between the great military governments of earth.

134:5.11 (1489.2) As the number of truly sovereign

자가 줄어감에 따라, 인류 전체의 정부에 대한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한다. 단지 소수의 (거대한) 강대국만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할 때, 그들은 국가(곧 제국)의 우월성을 위해 사생결단의 투쟁을 선포해야 하던가, 아니면, 주권의 어떤 특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의 시작으로 작용하게 될, 초국가적 권력의 본질적인 토대를 창립해야 한다.

소위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력을, 온 인류의 대표 정부에게 양보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세계의 민족들에게 내재적이다. **유란시아**의 모든 민족이 하나의 세계정부를 창립할 때, 그들은 그런 정부를 **주권자**로 만들 권리와 힘을 지닐 것이며; 그런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권력이, 세계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지구에서 통제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이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선이 도모될 것이다--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19세기와 20세기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48개의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합중국**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권을 연방 정부에게 양도했으며, 전쟁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자결권이라는 망상에 대한 주장을 모두 포기해 왔다. 각 주정부(州政府)는 자체의 내부 업무를 규제하지만, 외국과의 관계, 세관, 이민, 군사 문제, 주정부 간의 통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각 주정부는 시민권의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주권이 어떤 문제로 위태롭게 됐을 경우에만, 48개 주가 전쟁으로 인한 참화(慘禍)를 겪게 된다.

이 48개 주는, 주권과 자결권이라는 두 가지 꾀변을 포기해 왔기 때문에, 주들 사이에 평화와 평정을 누린다. 이와 같이 **유란시아** 국가들도 그들 각자의 주권을 범세계 정부--곧 사람의 형제단체의 주권--의 지배에 양도할 때, 그런 평화를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적 국가에서는,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만큼 힘을 갖게 되는데, 마치 작은 **로드 아일랜드** 주(州)가, 많은 인구의 **뉴욕** 주나 가장 큰 **텍사스**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에 두 명의 상원의원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48개 주의(곧 주정부의) 한정된 주권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주를 관할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 통치권은, 이 여러 주 중에서 원조(元祖)가 되는 13개 주가, 그들 자체의 이익과 주민(州民)의 이익을 위해 창설했다. 언젠가는 여러 나라가, 자체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 주권을 갖는 인류의 행성 정부를 비슷하게 창설할 것이다.

nations (great powers) decreases, so do both opportunity and need for mankind government increase. When there are only a few really sovereign (great) powers, either they must embark on the life and death struggle for national (imperial) supremacy, or else, by voluntary surrender of certain prerogatives of sovereignty, they must create the essential nucleus of supernational power which will serve as the beginning of the real sovereignty of all mankind.

134:5.12 (1489.3) Peace will not come to Urantia until every so-called sovereign nation surrenders its power to make war into the hands of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all mankind. Political sovereignty is innate with the peoples of the world. When all the peoples of Urantia create a world government, they have the right and the power to make such a government SOVEREIGN; and when such a representative or democratic world power controls the world's land, air, and naval forces,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can prevail — but not until then.

134:5.13 (1489.4) To use an important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illustration: The forty-eight states of the American Federal Union have long enjoyed peace. They have no more wars among themselves. They have surrendered their sovereignty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rough the arbitrament of war, they have abandoned all claims to the delusions of self-determination. While each state regulates its internal affairs, it is not concerned with foreign relations, tariffs, immigration, military affairs, or interstate commerce. Neither do the individual states concern themselves with matters of citizenship. The forty-eight states suffer the ravages of war only when the federal government's sovereignty is in some way jeopardized.

134:5.14 (1489.5) These forty-eight states, having abandoned the twin sophistries of sovereignty and self-determination, enjoy interstate peace and tranquillity. So will the nations of Urantia begin to enjoy peace when they freely surrender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into the hands of a global government — the sovereignty of the brotherhood of men. In this world state the small nations will be as powerful as the great, even as the small state of Rhode Island has its two senators in the American Congress just the same as the populous state of New York or the large state of Texas.

134:5.15 (1490.1) The limited (state) sovereignty of these forty-eight states was created by men and for men. The superstat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American Federal Union was created by the original thirteen of these states for thei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men. Sometime the supernational sovereignty of the planetary government of mankind will be similarly created by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정부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고안된 조직이다.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갖는 정부가 나타나 날 때까지,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끝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다른 주권은 가치에서 상대적이고, 의미에서 중간적이며, 지위에서 종속적이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쟁은 그들이 거의 인종적 자살 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잔인하게 돼가고 있다. 사람이 인류 전체의 정부를 기꺼이 세우고, 영원한 평화를 즐기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선--곧 전 세계적인 친선--으로 얻은 평정을 토대로 변명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계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 동맹이 깨져야만 할 것인가?

6. 법, 자유, 주권

어떤 한 사람이 해방을--곧 자유를-- 열망한다면, 그는 모든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와 똑같은 해방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필사자 집단은, 각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해방을 허락해 주는 동시에, 동료 필사자들 모두에게도 같은 양의 해방을 보장해줄, 법, 규정, 및 규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로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노예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 상대적 본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자유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문명의 선물이다.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을 종교가 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행복이나 효율성에 대한 그런 목표와 관련되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정부가 필요하다.

세계의 정치 주권이 나뉘어 있고 한 집단의 국가_주정부가 불공정하게 장악하는 한,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반목하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그들이 각자의 주권을 **영연방**(英聯邦)에게 위임하기 전까지 항상 서로 싸우고 있었다.

또 다른 세계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소위 주권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동맹을 형성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국지전(局地戰), 즉 약소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예방하는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전쟁은 인류 정부가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 주권이 세계 전쟁을 막게 될 것이다--다른 수단은 없다.

nations for thei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all men.

134:5.16 (1490.2) Citizens are not born for the benefit of governments; governments are organizations created and devised for the benefit of men. There can be no end to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short of the appearance of the government of the sovereignty of all men. All other sovereignties are relative in value, intermediate in meaning, and subordinate in status.

134:5.17 (1490.3) With scientific progress, wars are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devastating until they become almost racially suicidal. How many world wars must be fought and how many leagues of nations must fail before men will be willing to establish the government of mankind and begin to enjoy the blessings of permanent peace and thrive on the tranquillity of good will — world-wide good will — among men?

6. LAW, LIBERTY, AND SOVEREIGNTY

134:6.1 (1490.4) If one man craves freedom — liberty — he must remember that *all* other men long for the same freedom. Groups of such liberty-loving mortals cannot live together in peace without becoming subservient to such laws, rules, and regulations as will grant each person the same degree of freedom while at the same time safeguarding an equal degree of freedom for all of his fellow mortals. If one man is to be absolutely free, then another must become an absolute slave. And the relative nature of freedom is tru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Freedom is the gift of civilization made possible by the enforcement of LAW.

134:6.2 (1490.5) Religion makes it spiritually possible to realize the brotherhood of men, but it will require mankind government to regulat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such a goal of human happiness and efficiency.

134:6.3 (1490.6) There shall be wars and rumors of wars —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 just as long as the world's political sovereignty is divided up and unjustly held by a group of nation-states. England, Scotland, and Wales were always fighting each other until they gave up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reposing them in the United Kingdom.

134:6.4 (1490.7) Another world war will teach the so-called sovereign nations to form some sort of federation, thus creating the machinery for preventing small wars, wars between the lesser nations. But global wars will go on until the government of mankind is created. Global sovereignty will prevent global wars — nothing else can.

미국의 독립된 48개 주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이 48개 주의 시민 중에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국민과 종족 모두가 섞여 있다. 이 **미국인**은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교파와 종파를 대표하며,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북 아메리카** 지역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이 48개 주(州)가 자체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결권을 갖는 권리라고 생각된 모든 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그것은 무장(武裝)과 비무장의 문제가 아니다. 징병인가 혹은 지원병인가 하는 것도,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강대국들로부터 현대의 기계화된 무기와 모든 유형의 폭탄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권이 신성한 권리라는 망상에 그들이 빠져 있는 한, 주먹과 돌과 몽둥이를 갖고서라도 싸울 것이다.

전쟁은 크고 끔찍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며; 전쟁은 증상이자 결과다. 진짜 질병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병균이다.

유란시아 국가들은 진정한 주권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며; 세계 전쟁의 참상과 황폐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인류의 범세계 정부를 창설하는 것은, 국가들이 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영구적인 세계 주권을 창설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전쟁으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지역의 직무는 지방정부가; 나라의 직무는 국가 정부가 처리하며; 국제적 직무는 범세계 정부가 경영할 것이다.

세계평화는, 조약, 외교, 외교 정책, 연맹, 힘의 균등, 혹은 민족주의적 주권으로 즉흥적 속임수를 쓰는 어떤 다른 유형의 미봉책으로도 유지될 수 없다. 세계에 통용되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세계정부가--곧 전체 인류의 통치권이-- 집행해야 한다.

개인들은 세계정부 아래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시민은 거의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 당하고, 제약 받고, 통제 받고 있으며, 이런 현재의 개인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간섭은, 국가 정부들이 국제적 문제에 관한 그들의 주권을 범세계 정부에게 기꺼이 맡길 때 사라질 것이다.

국가 집단들은, 범세계 정부 아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인적 자유를 깨닫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결권이라는 그릇된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돈과 무역에 대한 범세계적 규제가 따라서 세계적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곧 범세계적 언어가 생길 것이며, 적어도 언젠가는 범세계 종교--또는 범세계 권

134:6.5 (1490.8) The forty-eight American free states live together in peace. There are among the citizens of these forty-eight states all of the various nationalities and races that live in the ever-warring nations of Europe. These Americans represent almost all the religions and religious sects and cults of the whole wide world, and yet here in North America they live together in peace. And all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these forty-eight states have surrendered their sovereignty and have abandoned all notions of the supposed rights of self-determination.

134:6.6 (1490.9) It is not a question of armaments or disarmament. Neither does the question of conscription 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enter into these problems of maintaining world-wide peace. If you take every form of modern mechanical armaments and all types of explosives away from strong nations, they will fight with fists, stones, and clubs as long as they cling to their delusions of the divine right of national sovereignty.

134:6.7 (1491.1) War is not man's great and terrible disease; war is a symptom, a result. The real disease is the virus of national sovereignty.

134:6.8 (1491.2) Urantia nations have not possessed real sovereignty; they never have had a sovereignty which could protect them from the ravages and devastations of world wars. In the creation of the global government of mankind, the nations are not giving up sovereignty so much as they are actually creating a real, bona fide, and lasting world sovereignty which will henceforth be fully able to protect them from all war. Local affairs will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s; national affairs, by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affairs will be administered by global government.

134:6.9 (1491.3) World peace cannot be maintained by treaties, diplomacy, foreign policies, alliances, balances of power, or any other type of makeshift juggling with the sovereignties of nationalism. World law must come into being and must be enforced by world government — the sovereignty of all mankind.

134:6.10 (1491.4) The individual will enjoy far more liberty under world government. Today, the citizens of the great powers are taxed, regulated, and controlled almost oppressively, and much of this present interference with individual liberties will vanish when the national governments are willing to trustee their sovereignty as regards international affairs into the hands of global government.

134:6.11 (1491.5) Under global government the national groups will be afforded a real opportunity to realize and enjoy the personal liberties of genuine democracy. The fallacy of self-determination will be ended. With global regulation of money and trade will come the new era of world-wide peace. Soon may a global language evolve, and there will

해를 지닌 종교--를 갖게 된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집단의 안전은, 그 집합체가 온 인류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를 대표하는 정부의 정치 주권이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친선을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이 세상에 평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친선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심보이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들은 평화로운 교수진을 유지해 나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르미아** 교수진에 합세했던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아량이 있었다라면, **예수**의 교훈의 영향은 훨씬 컸을 것이다.

심보이톤의 맏아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넬**에게 도움을 청했었지만, **아브넬**이 선택한 선생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바뀌는 바람에, 가장 유감스럽게 됐다. 이 선생들은, 자신의 종교가 다른 믿음들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들은 그 대상(隊商) 안내자가 했다고 종종 인용된 강의들이, **예수**가 직접 했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교수진 사이에 혼란이 커지자, 세 형제는 경제 지원을 끊었고, 그 학교는 5년 후에 문을 닫았다. 그것은 나중에 **미드라** 사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나, 결국 어느 주신제(酒神祭) 축제와 관련해서 불타버렸다.

7. 서른한 살 되던 해 (서기 25년)

카스피 해로 떠났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는 자신의 세상 여행이 거의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한 번 더 **팔레스틴** 밖으로 여행했는데, **시리아**로 간 것이었다. 그는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한 후에, **나사렛**으로 갔고, 거기서 며칠 머물렀다. 그는 4월 중순에 **나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향했다. 거기서 북쪽으로 여행하여 **시돈**에 며칠 머물렀지만, 그의 목적지는 **안디옥**이었다.

이 해에 **예수**는 혼자 **팔레스틴**과 **시리아**를 두루 다녔다. 그는 이 여행 기간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나사렛** 목수, **가버나움** 조선공, **다마스쿠스** 서기관, **알렉산드리아** 교사 등이 그것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안디옥**에서 두 달 동안 살면

be at least some hope of sometime having a global religion — or religions with a global viewpoint.

134:6.12 (1491.6) Collective security will never afford peace until the collectivity includes all mankind.

134:6.13 (1491.7) The political sovereignty of representative mankind government will bring lasting peace on earth, and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will forever insure good will among all men. And there is no other way whereby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can be realized.

134:6.14 (1491.8) After the death of Cymboyton, his sons encountered great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peaceful faculty. The repercussions of Jesus' teachings would have been much greater if the later Christian teachers who joined the Urmia faculty had exhibited more wisdom and exercised more tolerance.

134:6.15 (1491.9) Cymboyton's eldest son had appealed to Abner at Philadelphia for help, but Abner's choice of teachers was most unfortunate in that they turned out to be unyielding and uncompromising. These teachers sought to make their religion dominant over the other beliefs. They never suspected that the oft-referred-to lectures of the caravan conductor had been delivered by Jesus himself.

134:6.16 (1491.10) As confusion increased in the faculty, the three brothers withdrew their financial support, and after five years the school closed. Later it was reopened as a Mithraic temple and eventually burned down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ir orgiastic celebrations.

7. THE THIRTY-FIRST YEAR (A.D. 25)

134:7.1 (1492.1) When Jesus returned from the journey to the Caspian Sea, he knew that his world travels were about finished. He made only one more trip outside of Palestine, and that was into Syria. After a brief visit to Capernaum, he went to Nazareth, stopping over a few days to visit. In the middle of April he left Nazareth for Tyre. From there he journeyed on north, tarrying for a few days at Sidon, but his destination was Antioch.

134:7.2 (1492.2) This is the year of Jesus' solitary wanderings through Palestine and Syria. Throughout this year of travel he was known by various nam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boatbuilder of Capernaum, the scribe of Damascus, and the teacher of Alexandria.

134:7.3 (1492.3) At Antioch the Son of Man lived for

서, 일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방문하고, 보살핌으며, 그동안 내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곧 그들이 인간 실존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배웠다. 그는 이 기간 중에 3주 동안 천막 짓는 일을 했다. 그는 이 여행 중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 **안디옥**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 10년 후에,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추종자들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학생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는 **안디옥**에서 **가이사라**를 향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했고, 거기서 몇 주 지내다가 해변을 따라서 **옴바**로 내려갔다. **옴바**에서 **암니아**, **애쉬돗**, **가자**를 향해 내륙 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가자**에서 내륙 도로를 택해서 **브엘세바**로 갔고, 거기서 한 주간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적(私的)으로 혼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팔레스틴** 중심부를 통과하여,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단**으로 갔다. 그는 북쪽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헤브론**과 **베들레헴**(여기서 자신의 출생지를 봤다), **예루살렘**(**베다니**를 방문하지 않았다), **베롯**, **레보나**, **싸이카**, **세겔**, **사마리아**, **게바**, **엔가님**, **엔도르**, **마돈**을 들렀고; **막달라**와 **가버나움**을 지나서 북쪽으로 여행했으며; **메롬**의 **우물**에서 동쪽으로 **카라타**를 지나, **단**, 즉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다.

내주하는 **사교 조율사**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나서 스스로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도록 **예수**를 인도했고, 거기서 **예수**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정복하는 업무를 끝낼 수 있었으며, 이 세상에서 남은 필생과업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완수하게 하는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주님**의 이 세상 생애 가운데 이례적이고 특이한 시기들 가운데 하나였다. 매우 비슷한 또 하나의 체험은, 세례 받은 직후에, 그가 홀로 **펠라** 근처 언덕에 있을 때 겪은 것이었다. **헤르몬 산**에서 보낸 이 격리 기간은, 그의 순수한 인간 생애의 종료, 즉 필사자 증여의 절차상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었던 반면, 나중에 있었던 격리 기간은, 증여에서 좀 더 신성한 국면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헤르몬 산** 기슭에서 6주 동안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

8. 헤르몬 산에 체류함

예수는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생필품을 준비했으며, 그것을 짐 싣는 짐승 위에 붙들어 매고, **티그랏**이라는 소년을 데리고, **다마스쿠스** 길을 따라서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베이트 젠**이라 알려진 마을로 갔다. 서기 25년 8월 중순 경, 그는 거기에 본거지를 정하고 물

over two months, working, observing, studying, visiting, ministering, and all the while learning how man lives, how he thinks, feels, and reacts to the environment of human existence. For three weeks of this period he worked as a tentmaker. He remained longer in Antioch than at any other place he visited on this trip. Ten years later, when the Apostle Paul was preaching in Antioch and heard his followers speak of the doctrines of the *Damascus scribe*, he little knew that his pupils had heard the voice, and listened to the teachings, of the Master himself.

134:7.4 (1492.4) From Antioch Jesus journeyed south along the coast to Caesarea, where he tarried for a few weeks, continuing down the coast to Joppa. From Joppa he traveled inland to Jamnia, Ashdod, and Gaza. From Gaza he took the inland trail to Beersheba, where he remained for a week.

134:7.5 (1492.5) Jesus then started on his final tour, as a private individual, through the heart of Palestine, going from Beersheba in the south to Dan in the north. On this journey northward he stopped at Hebron, Bethlehem (where he saw his birthplace), Jerusalem (he did not visit Bethany), Beeroth, Lebonah, Sychar, Schecham, Samaria, Geba, En-Gannim, Endor, Madon; passing through Magdala and Capernaum, he journeyed on north; and passing east of the Waters of Merom, he went by Karahta to Dan, or Caesarea-Philippi.

134:7.6 (1492.6)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now led Jesus to forsake the dwelling places of men and betake himself up to Mount Hermon that he might finish his work of mastering his human mind and complete the task of effecting his full consecration to the remainder of his lifework on earth.

134:7.7 (1492.7) This was one of those unusual and extraordinary epochs in the Master's earth life on Urantia. Another and very similar one was the experience he passed through when alone in the hills near Pella just subsequent to his baptism. This period of isolation on Mount Hermon marked the termination of his purely human career, that is, the technical termination of the mortal bestowal, while the later isolatio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more divine phase of the bestowal. And Jesus lived alone with God for six weeks on the slopes of Mount Hermon.

8. THE SOJOURN ON MOUNT HERMON

134:8.1 (1492.8) After spending some time in the vicinity of Caesarea-Philippi, Jesus made ready his supplies, and securing a beast of burden and a lad named Tiglath, he proceeded along the Damascus road to a village sometime known as Beit Jenn in the foothills of Mount Hermon. Here, near the middle of August, A.D. 25, he established

자를 **티그랏**에게 맡긴 후에, 인적이 드문 산기슭을 올라갔다. 첫날, **티그랏**은 약 해발 6,000피트 되는 지점까지 **예수**와 동행했고, 그들은 거기에 돌로 저장고(貯藏庫)를 지었는데, **티그랏**이 매주 두 번씩 거기에 음식을 갖다 놓기로 했다.

예수는 첫날 **티그랏**을 보낸 후에, 산을 약간 더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멈췄다. 그는 무엇보다, **아버지**께 “**티그랏**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호 스라빔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들과의 마지막 투쟁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수락됐다. 그는 단지 자신을 인도하고 유지시키는 내주하는 **조울사**와 함께, 이 엄청난 시험에 돌입했다.

예수는 산에 있을 동안 음식을 간소하게 먹었으며, 한 번에 하루나 이틀씩만 금식했다. 이 산에서 그가 대면했던, 영으로 씨름을 했던, 그리고 능력으로 물리쳤던 초인간은 실재였으며, 그들은 **사타니아** 체계에서 그의 우두머리_적(敵)들이었으며,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허약하고 굶주린 필사자의 지적(知的) 변덕스러움에서 연유된 망상적 환상이 아니었다.

예수는 8월 마지막 3주와 9월의 첫 3주를 **헤르몬 산**에서 지냈다. **예수**는 이 기간에, 여러 계통의 정신_이해 및 인격_통계를 성취하는, 필사자로서의 과제를 완료했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교하는 이 기간에, 내주하는 **조울사**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완료했다. 이 세상 피조물의 필사 목표가 거기서 달성됐다. 다만 정신과 **조울사**의 동조(同調)라는 마지막 국면의 완성만 남게 됐다.

방해받지 않고 5주 넘도록 **낙원 아버지**와 긴밀한 친교를 나눈 후에, **예수**는 자신의 본성뿐만 아니라, 시_공간에서 인격이 형태화되는 물질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었다는 것을, 절대로 확신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 본성을 지배하게 됐음을 온전히 믿었고, 이를 서슴없이 단언했다.

산에서 체류하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께 **요셉**의 아들 **예슈아**라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예수**는 **사타니아**에 있는 적들과 회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허락됐다. **헤르몬 산**에서 마지막 주간에, 엄청난 유혹, 즉 우주 심리(審理)가 벌어졌다. (**루시퍼**를 대변하는) **사탄**과, 반역한 **행성 왕자 캘리가스차**가 **예수** 앞에 나왔고, 그가 볼 수 있도록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유혹”, 즉 반역한 인격체들의 잘못된 대표 권한에 직면해서 인간적 충성심을 판단하는 이 마지막 시련은, 음식이나 성전 폭대기 또는 무엄한 행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his headquarters, and leaving his supplies in the custody of Tiglath, he ascended the lonely slopes of the mountain. Tiglath accompanied Jesus this first day up the mountain to a designated point about 6,000 feet above sea level, where they built a stone container in which Tiglath was to deposit food twice a week.

134:8.2 (1493.1) The first day, after he had left Tiglath, Jesus had ascended the mountain only a short way when he paused to pray. Among other things he asked his Father to send back the guardian seraphim to “be with Tiglath.” He requested that he be permitted to go up to his last struggle with the realities of mortal existence alone. And his request was granted. He went into the great test with only his indwelling Adjuster to guide and sustain him.

134:8.3 (1493.2) Jesus ate frugally while on the mountain; he abstained from all food only a day or two at a time. The superhuman beings who confronted him on this mountain, and with whom he wrestled in spirit, and whom he defeated in power, were real; they were his archenemies in the system of Satania; they were not phantasms of the imagination evolved out of the intellectual vagaries of a weakened and starving mortal who could not distinguish reality from the visions of a disordered mind.

134:8.4 (1493.3) Jesus spent the last three weeks of August and the first three weeks of September on Mount Hermon. During these weeks he finished the mortal task of achieving the circles of mind-understanding and personality-control. Throughout this period of communion with his heavenly Father the indwelling Adjuster also completed the assigned services. The mortal goal of this earth creature was there attained. Only the final phase of mind and Adjuster attunement remained to be consummated.

134:8.5 (1493.4) After more than five weeks of unbroken communion with his Paradise Father, Jesus became absolutely assured of his nature and of the certainty of his triumph over the material levels of time-space personality manifestation. He fully believed in, and did not hesitate to assert, the ascendancy of his divine nature over his human nature.

134:8.6 (1493.5) Near the end of the mountain sojourn Jesus asked his Father if he might be permitted to hold conference with his Satania enemies as the Son of Man, as Joshua ben Joseph. This request was granted. During the last week on Mount Hermon the great temptation, the universe trial, occurred. Satan (representing Lucifer) and the rebellious Planetary Prince, Caligastia, were present with Jesus and were made fully visible to him. And this “temptation,” this final trial of human loyalty in the face of the misrepresentations of rebel personalities, had not to do with food, temple pinnacles, or presumptuous acts. It had not to do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위력 있고 영광스런 우주 주권과 관계된 것이었다. 너희의 기록에 나타나는 그 상징은, 유치하게 생각하는 진부한 시대의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세대들은, 그 획기적인 날에 **헤르몬 산에서 사람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투쟁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루시퍼의 밀사(密使)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과 반대 제안에 대해서, **예수**는 단지: “내 **낙원 아버지**의 뜻이 이뤄지기 바라며,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이아, 너를 **태고 창조자**가 신성하게 재판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창조주** 아버지이며; 내가 너를 공정하게 재판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는 이미 내 자비를 거절해 왔다. 나는 너를 더 높은 우주 **재판관**들의 판결에 회부한다”고 대답했다.

루시퍼가 제시한 모든 절충안과 미봉책(彌縫策)에 대해서, 즉 육신화 된 증여에 대한 그럴듯한 모든 제안에 대해서, **예수**는 오직, “**낙원**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뤄질 지어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심리하는 호된 시련이 끝나자, 떠나갔던 수호 스라빔이 **예수** 곁으로 돌아와서 그를 섬겼다.

늦은 여름 어느 날 오후에, 나무로 둘러싸인 고요한 자연 속에서,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권을 획득했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창조주 아들**들이 필사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한 삶을 전부 살아야 하는 과제를, 그는 바로 그날 완성했다. 이 감격적인 성취에 대한 우주 발표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있었던 그의 세례의 날까지 미뤄졌지만, 그 모든 것은 산에서 그날 실제로 이뤄졌다. 그리고 **예수**가 **헤르몬 산**에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사타니아**에서 **루시퍼**의 반역과 **유란시아**에서 **캘리개스차**의 탈퇴는 실질적으로 처리됐다. **예수**는 자신이 지은 우주의 주권을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마지막 값을 다 지불했는데, 이 주권은, 그 자체로, 모든 반역자의 지위를 통제하고, 그런 모든 미래의 격변(激變)이 (그런 것이 만약 발생한다면) 즉석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확정한다. 따라서, 소위 **예수**의 “큰 시험”은, 그가 세례 받은 직후가 아니라, 그 사건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산에서 체류를 끝내고 하산할 때, **예수**는 음식을 갖고 올라오던 **티그랏**을 만났다. 그는 그를 돌려보내면서 단지: “위는 시간이 끝났으며;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단**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아무 말 없었고 매우 달라진 사람이었으며, 거기서 소년에게 당나귀를 주고 작별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왔던 같은 길을 따라서 **가버나움**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with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with the sovereignty of a mighty and glorious universe. The symbolism of your records was intended for the backward ages of the world's childlike thought. And subsequent generations should understand what a great struggle the Son of Man passed through that eventful day on Mount Hermon.

134:8.7 (1493.6) To the many proposals and counterproposals of the emissaries of Lucifer, Jesus only made reply: “May the will of my Paradise Father prevail, and you, my rebellious son, may the Ancients of Days judge you divinely. I am your Creator-father; I can hardly judge you justly, and my mercy you have already spurned. I commit you to the adjudication of the Judges of a greater universe.”

134:8.8 (1494.1) To all the Lucifer-suggested compromises and makeshifts, to all such specious proposals about the incarnation bestowal, Jesus only made reply, “The will of my Father in Paradise be done.” And when the trying ordeal was finished, the detached guardian seraphim returned to Jesus' side and ministered to him.

134:8.9 (1494.2) On an afternoon in late summer, amid the trees and in the silence of nature, Michael of Nebadon won the unquestion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On that day he completed the task set for Creator Sons to live to the full the incarnated lif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 universe announcement of this momentous achievement was not made until the day of his baptism, months afterward, but it all really took place that day on the mountain. And when Jesus came down from his sojourn on Mount Hermon,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and the Caligastia secession on Urantia were virtually settled. Jesus had paid the last price required of him to attain the sovereignty of his universe, which in itself regulates the status of all rebels and determines that all such future upheavals (if they ever occur) may be dealt with summarily and effectively. Accordingly, it may be seen that the so-called “great temptation” of Jesus took place sometime before his baptism and not just after that event.

134:8.10 (1494.3) At the end of this sojourn on the mountain, as Jesus was making his descent, he met Tiglath coming up to the rendezvous with food. Turning him back, he said only: “The period of rest is over; I must return to my Father's business.” He was a silent and much changed man as they journeyed back to Dan, where he took leave of the lad, giving him the donkey. He then proceeded south by the same way he had come, to Capernaum.

9. 기다리던 시절

9. THE TIME OF WAITING

이제는 여름이 끝날 때가 됐고, 속죄의 날과 장막절이 다가왔다. **예수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족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며, 호수 동쪽으로 갔고, **거라사**를 지나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가는 도중에 동무와 얼마큼 이야기하는 동안, **요한**은 **예수**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예수와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날 밤 묵으면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함께 지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거의 3주 동안 그 도성{都城} 안과 주변에서 보냈는데, 적어도 **요한**은 그랬다. **요한**이 홀로 여러 날 **예루살렘**에 들어 있는 동안, **예수**는 가까이 있는 언덕을 거닐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지냈다.

그들은 둘 다 속죄{贖罪}의 날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했다. **요한**은 **유대인** 종교 제례식의 모든 날 가운데 이날 예식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예수**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았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제 이런 실행이 가없고 애처롭게 보였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들을 잘못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날의 여러 행사를, 신{神}이 응보한다는 사실과 무한히 자비를 베푼다는 진리에 대한 영터리 시능으로 간주했다.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성품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자비로우신 운영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열정에 타올랐지만, 충실한 **감시자**가 그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에서, **예수**는 **요한**을 매우 혼란시키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요한**은, 그날 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는 장막절 주간 내내 **요한**과 함께 남았기로 계획했다. 이 축제는 **팔레스틴** 전체의 연중 공휴일이었으며; **유대인**의 휴가절이었다. **예수**는 비록 이 행사의 흥겨운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체험을 했음이 분명했다.

축전{祝典}이 벌어지는 주중{週中}이고, 축제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예수**는 **낙원 아버지**와 좀더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 언덕으로 물러나 있고 싶다는 말을 하고 **요한**에게서 떠났다. **요한**이 그와 함께 가려 했으나, **예수**는 그에게 축제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도록 지시하면서 말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의 짐을 같이 져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파수꾼만이, 도시가 평화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불침번을 서야 한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베다니**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거의 한 주간 홀로 지낸 후에, **가버나움**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생애를 마쳤던 장소 근처 **길보아산** 기슭에서 하루 밤과 낮

134:9.1 (1494.4) It was now near the end of the summer, about the time of the day of atonement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had a family meeting in Capernaum over the Sabbath and the next day started for Jerusalem with John the son of Zebedee, going to the east of the lake and by Gerasa and on down the Jordan valley. While he visited some with his companion on the way, John noted a great change in Jesus.

134:9.2 (1494.5) Jesus and John stopped overnight at Bethany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going early the next morning to Jerusalem. They spent almost three weeks in and around the city, at least John did. Many days John went into Jerusalem alone while Jesus walked about over the near-by hills and engaged in many seasons of spiritual communion with his Father in heaven.

134:9.3 (1494.6) Both of them were present at the solemn services of the day of atonement. John was much impressed by the ceremonies of this day of all days in the Jewish religious ritual, but Jesus remained a thoughtful and silent spectator. To the Son of Man this performance was pitiful and pathetic. He viewed it all as mis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and attributes of his Father in heaven. He looked upon the doings of this day as a travesty upon the facts of divine justice and the truths of infinite mercy. He burned to give vent to the declaration of the real truth about his Father's loving character and merciful conduct in the universe, but his faithful Monitor admonished him that his hour had not yet come. But that night, at Bethany, Jesus did drop numerous remarks which greatly disturbed John; and John never fully understood the real significance of what Jesus said in their hearing that evening.

134:9.4 (1495.1) Jesus planned to remain throughout the week of the feast of tabernacles with John. This feast was the annual holiday of all Palestine; it was the Jewish vacation time. Although Jesus did not participate in the merriment of the occasion, it was evident that he derived pleasure and experienced satisfaction as he beheld the lighthearted and joyous abandon of the young and the old.

134:9.5 (1495.2) In the midst of the week of celebration and ere the festivities were finished, Jesus took leave of John, saying that he desired to retire to the hills where he might the better commune with his Paradise Father. John would have gone with him, but Jesus insisted that he stay through the festivities, saying: “It is not required of you to bear the burden of the Son of Man; only the watchman must keep vigil while the city sleeps in peace.” Jesus did not return to Jerusalem. After almost a week alone in the hills near Bethany, he departed for Capernaum. On the way home he spent a day and a night alone on the slopes of Gilboa, near

을 홀로 지냈으며;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요한**을 남겨놓고 떠날 때보다 더 쾌활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는 **세베대의** 작업장에 왔던 개인 소지품 상자로 가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동생 **야고보**와 함께 다음 해 1월까지 수개월간 일했다. **예수**와 함께 일한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사람의 아들**의 펠생과업에 대한 **야고보**의 이해심에 어떤 의심이 혼란을 일으키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신앙을 그가 실제로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예수**의 이 마지막 작업 기간에, 그는 좀 더 큰 배의 내부를 마무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훌륭한 그 배를 완성시켰을 때, 인간적 성취의 만족감을 체험하는 듯 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는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떠맡은 일의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이는 일꾼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전도하고 있던 **요한**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퍼졌고, **요한**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예수**는,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강의 개울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면서 일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예수**는 다음 해인 서기 26년 1월에, **요한**이 **펠라** 근처 지점으로 강을 따라서 여행하기까지, 배를 만들면서 일을 계속했으며, 그때 그는 작업도구를 내려놓고, “나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면서,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갔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이미 **예수**에게 이뤄져 있었다. 그가 그 지역 땅들을 오가며 방문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공적{公的} 선생으로 나타난 그를, 이전 세월 동안 그들이 사적인 한 개인으로 알고 지내며 사랑했던 그 사람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적이고 권위 있는 선생으로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정신과 영의 변형이 여러 해 진행돼 왔고, 이것은 획기적인 **헤르몬 산**에서 중대한 체류기간에 마무리됐다.

where King Saul had taken his life; and when he arrived at Capernaum, he seemed more cheerful than when he had left John in Jerusalem.

134:9.6 (1495.3) The next morning Jesus went to the chest containing his personal effects, which had remained in Zebedee's workshop, put on his apron, and presented himself for work, saying, "It behooves me to keep busy while I wait for my hour to come." And he worked several months, until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in the boatshop, by the side of his brother James. After this period of working with Jesus, no matter what doubts came up to becloud James's understanding of the lifework of the Son of Man, he never again really and wholly gave up his faith in the mission of Jesus.

134:9.7 (1495.4) During this final period of Jesus' work at the boatshop, he spent most of his time on the interior finishing of some of the larger craft. He took great pains with all his handiwork and seemed to experience the satisfaction of human achievement when he had completed a commendable piece of work. Though he wasted little time upon trifles, he was a painstaking workman when it came to the essentials of any given undertaking.

134:9.8 (1495.5) As time passed, rumors came to Capernaum of one John who was preaching while baptizing penitents in the Jordan, and John preache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repent and be baptized." Jesus listened to these reports as John slowly worked his way up the Jordan valley from the ford of the river nearest to Jerusalem. But Jesus worked on, making boats, until John had journeyed up the river to a point near Pella in the month of January of the next year, A.D. 26, when he laid down his tools, declaring, "My hour has come," and presently presented himself to John for baptism.

134:9.9 (1495.6) But a great change had been coming over Jesus. Few of the people who had enjoyed his visits and ministrations as he had gone up and down in the land ever subsequently recognized in the public teacher the same person they had known and loved as a private individual in former years. And there was a reason for this failure of his early beneficiaries to recognize him in his later role of public and authoritative teacher. For long years this transformation of mind and spirit had been in progress, and it was finished during the eventful sojourn on Mount Hermon.

제 135편. 세레 요한

⇨ 134

유랜시아 책

13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5편
세레 요한

섹션

소개

1. 나실인이 된 요한
2. 사가라의 죽음
3. 목자의 생활
4. 엘리사벳의 죽음
5. 하나님 나라
6. 전도하기 시작한 요한
7. 북쪽으로 가는 요한
8. 예수와 요한의 만남
9. 40일간의 전도
10. 남쪽으로 가는 요한
11. 감옥에 갇힌 요한
12. 세레 요한의 죽음

PAPER 135
JOHN THE BAPTIST

SECTIONS

Introduction

1. John Becomes a Nazarite
2. The Death of Zacharias
3. The Life of a Shepherd
4. The Death of Elizabeth
5. The Kingdom of God
6. John Begins to Preach
7. John Journeys North
8. Meeting of Jesus and John
9. Forty Days of Preaching
10. John Journeys South
11. John in Prison
12. Death of John the Baptist

소개

세레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태어났는데, 그 전 해 6월에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였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의 방문을 5개월 동안 비밀로 했으며,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라**에게 말했을 때 그는 매우 고심했지만, **요한**이 태어나기 6주 전쯤 이상한 꿈을 꾸곤 한 후에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과 **사가라**의 꿈 외에는, **세레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상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없었다.

8일째 되던 날, **요한**은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당시에는 **유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해를 거둬하며 나날이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INTRODUCTION

135:0.1 (1496.1) JOHN the Baptist was born March 25, 7 B.C., in accordance with the promise that Gabriel made to Elizabeth in June of the previous year. For five months Elizabeth kept secret Gabriel's visitation; and when she told her husband, Zacharias, he was greatly troubled and fully believed her narrative only after he had an unusual dream about six weeks before the birth of John. Excepting the visit of Gabriel to Elizabeth and the dream of Zacharias, there was nothing unusual or supernatural connected with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135:0.2 (1496.2) On the eighth day John was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Jewish custom. He grew up as an ordinary child, day by day and year by year, in the small village known in those days as the City of Judah, about four miles west of Jerusalem.

요한의 어린 시절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은, 부모와 함께 **예수**와 **나사렛** 가족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 방문은 그가 여섯 살 조금 넘었을 때인, 기원전 1년 6월에 있었다.

그들이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에, **요한**의 부모는 아이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 작은 마을에는 회당 학교가 없었지만,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으므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사벳**도 **유대지방**의 보통 여자들보다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딸들”의 자손이었으므로, 제사장가문에 속했다. **요한**이 독자{獨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정신적, 영적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사가라**는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짧은 기간만 봉사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양을 키우는 소규모 목장을 소유했다. 이 땅만으로는 거의 생활이 안 됐으나, **사가라**는 제사장들에게 배정돼있는 성전 기금에서 정규 수당을 받았다.

1. 나실인이 된 요한

요한은 열네 살에 졸업하게 돼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해를, 그가 정식 **나실인**으로 맹세하기에 적당한 해로 택했다. 따라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사해**{死海} 아래에 있는 **엔게디**로 데려갔다. 그곳은 **나실인** 동우회{同友會}의 남쪽 본부였고, 소년은 거기서 정식으로 엄숙하게 이 집단의 종신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요한**은 **나실인** 서약을 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헌물 드리기를 마쳤다.

요한은, 저명한 선배인 **삼손**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웠던 것과 똑같은, 종신 서원식{誓願式}을 행했다. 종신 **나실인**은 성화{聖化}되고 거룩한 인물로 간주됐다. **유대인**은 대체사장에 버금가는 존경과 경의{敬意}로 **나실인**을 대했으며, 이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허락된 대체사장 이외에는, **나실인**만이 종신토록 봉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고귀한 성품의 건강한 남자로 자라났다.

열여섯 살이 됐을 때, **요한**은 **엘리아**에 관한 글을 읽게 된 결과로, **갈멜산**의 선지자에게 크게 감명 받게 되어, 그의 의복 형식을 본받기로 결정

135:0.3 (1496.3) The most eventful occurrence in John's early childhood was the visit, in company with his parents, to Jesus and the Nazareth family. This visit occurred in the month of June, 1 B.C., when he was a little over six years of age.

135:0.4 (1496.4) After their return from Nazareth John's parents began the systematic education of the lad. There was no synagogue school in this little village; however, as he was a priest, Zacharias was fairly well educated, and Elizabeth was far better educated than the average Judean woman; she was also of the priesthood, being a descendant of the “daughters of Aaron.” Since John was an only child, they spent a great deal of time on his mental and spiritual training. Zacharias had only short periods of service at the temple in Jerusalem so that he devoted much of his time to teaching his son.

135:0.5 (1496.5) Zacharias and Elizabeth had a small farm on which they raised sheep. They hardly made a living on this land, but Zacharias received a regular allowance from the temple funds dedicated to the priesthood.

1. JOHN BECOMES A NAZARITE

135:1.1 (1496.6) John had no school from which to graduate at the age of fourteen, but his parents had selected this as the appropriate year for him to take the formal Nazarite vow. Accordingly, Zacharias and Elizabeth took their son to Engedi, down by the Dead Sea. This was the southern headquarters of the Nazarite brotherhood, and there the lad was duly and solemnly inducted into this order for life. After these ceremonies and the making of the vows to abstain from all intoxicating drinks, to let the hair grow, and to refrain from touching the dead, the family proceeded to Jerusalem, where, before the temple, John completed the making of the offerings which were required of those taking Nazarite vows.

135:1.2 (1496.7) John took the same life vows that had been administered to his illustrious predecessors, Samson and the prophet Samuel. A life Nazarite was looked upon as a sanctified and holy personality. The Jews regarded a Nazarite with almost the respect and veneration accorded the high priest, and this was not strange since Nazarites of lifelong consecration were the only persons, except high priests, who were ever permitted to enter the holy of holies in the temple.

135:1.3 (1497.1) John returned home from Jerusalem to tend his father's sheep and grew up to be a strong man with a noble character.

135:1.4 (1497.2) When sixteen years old, John, as a result of reading about Elijah, became greatly impressed with the prophet of Mount Carmel and

했다. **요한**은 그날부터 항상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털옷을 입었다. 열여섯 살이 됐을 때, 그는 6피트 이상으로 자랐고 거의 다 성장한 상태였다. 흘러내리는 긴 머리와 특이한 복장을 한 그는, 정말로 개성이 뚜렷한 한 젊은이였다. 그의 부모는 약속의 아이이고 종신 **나실인**인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2. 사가라의 죽음

사가라는 몇 달 동안 병을 앓다가 서기 12년 7월에 세상을 떠났으며, **요한**이 막 열여덟 살 될 때였다. **요한**에게는 매우 난처한 시기였는데, **나실인** 서약을 하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죽은 자로 인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서약의 규율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나실인** 신분의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따랐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예루살렘**에 가서 여자들의 정원 한 쪽에 있는 **나실인** 구역에서, 자신의 정화(淨化)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 해 9월에, **엘리사벳**과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갔다. **요한**은 자신의 필생과업을 시작하기로 방금 결정했지만, **예수**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모범을 봄으로써 깨달은 바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즐거운 방문을 끝내고 **예수**와 **마리아**에게 작별한 후로, **예수**가 세례 받으려 **요단강**에 나올 때까지,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요한과 **엘리사벳**은 집으로 돌아왔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요한**이 성전 기금으로부터 받을 사제 수당을 거절했으므로, 2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 집도 처분해야 할 지경이 됐으며;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이 스무 살 되던 해 여름에 **헤브론**으로 이사했다. 소위 “**유대지방**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요한**은 **엔게디**에서 **사해**로 합류하는 좀 더 큰 시냇물의 지류인 개울을 따라서 양을 쳤다. **엔게디** 마을에는 종신토록 봉헌된 **나실인**과 일시적으로 봉헌된 **나실인** 뿐만 아니라, 가축을 이끌고 이 지역에 모여 **나실인** 동우회와 친하게 지내는, 수도(修道)하는 수많은 다른 목자(牧者)가 있었다. 그들은 양 치기와, 부자 **유대인**이 그 계층에게 기증했던 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은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횡수가 줄어든 반면, **엔게디** 방문은 늘어났다. 그는 대부분의 **나실인**과 너무 달랐으므로 동우회와 친하게 지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엔게디** 마을의 유명한 지도자이고 우두머리

decided to adopt his style of dress. From that day on John always wore a hairy garment with a leather girdle. At sixteen he was more than six feet tall and almost full grown. With his flowing hair and peculiar mode of dress he was indeed a picturesque youth. And his parents expected great things of this their only son, a child of promise and a Nazarite for life.

2. THE DEATH OF ZACHARIAS

135:2.1 (1497.3) After an illness of several months Zacharias died in July, A.D. 12, when John was just past eighteen years of age. This was a time of great embarrassment to John since the Nazarite vow forbade contact with the dead, even in one's own family. Although John had endeavored to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of his vow regarding contamination by the dead, he doubted that he had been wholly obedi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Nazarite order; therefore, after his father's burial he went to Jerusalem, where, in the Nazarite corner of the women's court, he offered the sacrifices required for his cleansing.

135:2.2 (1497.4) In September of this year Elizabeth and John made a journey to Nazareth to visit Mary and Jesus. John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o launch out in his lifework, but he was admonished, not only by Jesus' words but also by his example, to return home, take care of his mother, and await the “coming of the Father's hour.” After bidding Jesus and Mary good-bye at the end of this enjoyable visit, John did not again see Jesus until the event of his baptism in the Jordan.

135:2.3 (1497.5) John and Elizabeth returned to their home and began to lay plans for the future. Since John refused to accept the priest's allowance due him from the temple funds, by the end of two years they had all but lost their home; so they decided to go south with the sheep herd. Accordingly, the summer that John was twenty years of age witnessed their removal to Hebron. In the so-called “wilderness of Judea” John tended his sheep along a brook that was tributary to a larger stream which entered the Dead Sea at Engedi. The Engedi colony included not only Nazarites of lifelong and time-period consecration but numerous other ascetic herdsmen who congregated in this region with their herds and fraternized with the Nazarite brotherhood. They supported themselves by sheep raising and from gifts which wealthy Jews made to the order.

135:2.4 (1497.6) As time passed, John returned less often to Hebron, while he made more frequent visits to Engedi. He was so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ajority of the Nazarites that he found it very difficult fully to fraternize with the brotherhood. But he was very fond of Abner, the acknowledged

인 **아브넬**을 무척 좋아했다.

leader and head of the Engedi colony.

3. 목자의 생활

이 작은 여울 계곡을 따라서, **요한**은 돌 오두막과, 밤을 지내기 위한 가축우리를 열두 개 이상 지었는데, 가축 우리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양떼와 염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목자로서 **요한**의 삶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다. 그는 **벵 주르**의 고아 소년 **에즈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소년을 양자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요한**이 **안식일** 예배드리러 **엔게디**로 내려갔을 때는 물론, 어머니를 방문하거나 양을 팔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도, 그를 대신해서 양떼를 돌봤다. **요한**과 그 소년은, 양고기, 염소우유, 석청, 그 지방의 식용 메뚜기를 먹으면서 매우 간소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이런 정구 음식 외에도, 때로는 **헤브론**과 **엔게디**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었다.

엘리사벳이 **팔레스틴**과 세상 물정을 **요한**에게 계속 전했고, 그는 옛 체제가 끝나게 될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새 시대, 곧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선구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점점 더 깊어졌다. 꾸밈없는 이 목자는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특히 좋아했다. **요한**은, 거대한 형상에 대한 **다니엘**의 묘사를 천 번도 더 읽었는데, **사가**라는 그에게, 이것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세계의 탁월한 나라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줬었다. **요한**은, **로마**가 이미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강하게 뭉치고 굳건하게 통합된 제국은 결코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로마**가 앞으로,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틴**, 그리고 다른 영토들로 더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으며;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이 열왕{列王}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지배권과 영광과 나라를 줘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그를 섬기도록 하겠다. 그의 지배권은 영구적인 지배권이어서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천국, 지배권, 그리고 온 하늘 아래 있는 천국의 위대함이, **지고자**의 성도{聖徒}들의 민족에게 붙인바 될 것이니, 그의 나라는 영구적인 나라이고, 모든 통치권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것으로 인해, 그리고 **성서**에서 읽은 이 구절들로 인해 생긴 혼란에서 결코 완전히 헤어날 수 없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내가 또 밤 환상{幻想} 중에 봤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통치권

3. THE LIFE OF A SHEPHERD

135:3.1 (1497.7) Along the valley of this little brook John built no less than a dozen stone shelters and night corrals, consisting of piled-up stones, wherein he could watch over and safeguard his herds of sheep and goats. John's life as a shepherd afforded him a great deal of time for thought. He talked much with Ezda, an orphan lad of Beth-zur, whom he had in a way adopted, and who cared for the herds when he made trips to Hebron to see his mother and to sell sheep, as well as when he went down to Engedi for Sabbath services. John and the lad lived very simply, subsisting on mutton, goat's milk, wild honey, and the edible locusts of that region. This, their regular diet, was supplemented by provisions brought from Hebron and Engedi from time to time.

135:3.2 (1498.1) Elizabeth kept John posted about Palestinian and world affairs, and his conviction grew deeper and deeper that the time was fast approaching when the old order was to end; that he was to become the herald of the approach of a new age, “the kingdom of heaven.” This rugged shepherd was very partial to the writings of the Prophet Daniel. He read a thousand times Daniel's description of the great image, which Zacharias had told him represented the history of the great kingdoms of the world, beginning with Babylon, then Persia, Greece, and finally Rome. John perceived that already was Rome composed of such polyglot peoples and races that it could never become a strongly cemented and firmly consolidated empire. He believed that Rome was even then divided, as Syria, Egypt, Palestine, and other provinces; and then he further read “in the days of these kings shall the God of heaven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is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bu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And there was given him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never sha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whose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135:3.3 (1498.2) John was never able completely to rise above the confusion produced by what he had heard from his parents concerning Jesus and by these passages which he read in the Scriptures. In Daniel he read: “I saw in the night visions, and, 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came with the

과 영광과 나라를 수여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이런 말은, 부모가 그에게 가르친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가 열여덟 살에 **예수**를 방문했을 때 그와 나눴던 이야기 역시, 이런 **성서** 내용과 맞지 않았다. 이런 혼동에도, 어머니는 그가 당황할 때마다, 먼 친척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가 장차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그는(**요한**) 그의 도래를 미리 알리는 자와 최고 옹호자가 되리라고 그에게 주입시켰다.

요한은, **로마**의 타락과 사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제국의 방탕함과 도덕적 결핍에 관해서 들은 대로, 곧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지방** 총독의 사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시대의 마지막이 막 두하고 있음을 믿기로 결심했다. 거칠지만 천성적으로 고상한 이 소년에게, 세상은 이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신성한 시대--곧 하늘 나라--가 임하도록 무르익은 것처럼 보였다. **요한**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이 옛 선지자들의 마지막인 동시에 새 시대의 첫 선지자가 되리라는 느낌이 자라났다. 그는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싶은, 솟아오르는 충동으로 상당히 흔들렸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세상일의 새롭고 영원한 체제인 하늘 나라의 출현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라.”

4. 엘리사벳의 죽음

서기 22년 8월 17일, **요한**이 스물여덟 살 됐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직계가족이라도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나실인**의 제약 조건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의 친구들은, **요한**에게 소식을 알리기 전에 장례 준비를 끝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에즈다**에게 양떼를 몰고 **엔게디**로 가도록 지시하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엔게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양떼를 동우회에 기증하고, 한 계절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바깥세상과 접촉을 끊었다. **요한**은 신에게 접근하는 옛 방식만 알았으며, **엘리아**, **사무엘**, **다니엘** 등에 대한 기록만 알았다. **엘리아**는 그가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선지자였다. **엘리아**는 선지자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선생들 가운데 첫째였고,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사자로서 이런 오래되고 저명한 계통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요한은 2년 반 동안 **엔게디**에서 살았으며, 대부분의 동우회 사람들에게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초기 교훈은, 이방 통치자의 손에서 **유대** 국가를 건져내는, 약속된 구원자에

clouds of heaven, and there was given him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But these words of the prophet did not harmonize with what his parents had taught him. Neither did his talk with Jesus, at the time of his visit when he was eighteen years old, correspond with these statements of the Scriptures. Notwithstanding this confusion, throughout all of his perplexity his mother assured him that his distant cousin, Jesus of Nazareth, was the true Messiah, that he had come to sit on the throne of David, and that he (John) was to become his advance herald and chief support.

135:3.4 (1498.3) From all John heard of the vice and wickedness of Rome and the dissoluteness and moral barrenness of the empire, from what he knew of the evil doings of Herod Antipas and the governors of Judea, he was minded to believe that the end of the age was impending. It seemed to this rugged and noble child of nature that the world was ripe for the end of the age of man and the dawn of the new and divine age — the kingdom of heaven. The feeling grew in John's heart that he was to be the last of the old prophets and the first of the new. And he fairly vibrated with the mounting impulse to go forth and proclaim to all men: “Repent! Get right with God! Get ready for the end; prepare yourselves for the appearance of the new and eternal order of earth affairs, the kingdom of heaven.”

4. THE DEATH OF ELIZABETH

135:4.1 (1499.1) On August 17, A.D. 22, when John was twenty-eight years of age, his mother suddenly passed away. Elizabeth's friends, knowing of the Nazarite restrictions regarding contact with the dead, even in one's own family, made all arrangements for the burial of Elizabeth before sending for John. When he received word of the death of his mother, he directed Ezda to drive his herds to Engedi and started for Hebron.

135:4.2 (1499.2) On returning to Engedi from his mother's funeral, he presented his flocks to the brotherhood and for a season detached himself from the outside world while he fasted and prayed. John knew only of the old methods of approach to divinity; he knew only of the records of such as Elijah, Samuel, and Daniel. Elijah was his ideal of a prophet. Elijah was the first of the teachers of Israel to be regarded as a prophet, and John truly believed that he was to be the last of this long and illustrious line of the messengers of heaven.

135:4.3 (1499.3) For two and a half years John lived at Engedi, and he persuaded most of the brotherhood that “the end of the age was at hand”;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bout to appear.” And all his early teaching was based upon the current Jewish idea and concept of the Messiah

대한 당시 **유대인** 관념과 **메시아** 개념에 근거했다.

요한은, **나실인** 본거지 **엔게디**에서 발견한 신성시되는 글을 이 기간 내내 많이 읽었다. 특히 **이사야**에게, 그리고 당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사야**서 마지막 다섯 장을 읽고 또 읽었으며, 이 예언을 믿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말라기**에서 읽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며; 그가 아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리고 도래하는 천국에 관해 전도하고 동료 **유대인**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망가도록 권고하러 나가지 못하도록 **요한**을 막은 것은, **엘리아**가 돌아오리라는 **말라기**의 이 약속뿐이었다. **요한**은 도래하는 천국 소식 전파에 준비돼 있었지만, **엘리아**의 도래에 대한 이 기대가 그를 2년 이상 물려서 있게 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아**가 아님을 알았다. **말라기**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예언은 문자 그대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그는 마침내, 첫 선지자가 **엘리아**라는 이름이었으므로,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야 하리라고, 감히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의심이 들었고, 이 의심은 언제라도 자신을 **엘리아**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요한이 그 시대 사람의 죄와 타락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비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엘리아**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아**처럼 옷을 입고 **엘리아**처럼 말하려고 애썼는데; 외모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 그 옛 선지자와 비슷했다. 그는 정말로 건강하고 멋진 자연인이었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정의로운 설교자였다. **요한**은 무식한 자가 아니었고, **유대**의 신성시되는 문서를 잘 알았으나, 세련되지는 못했다. 그는 명철한 사고가였고 능력 있는 웅변가였으며 무서운 탄핵자였다. 그는 그 시대에 본보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설득력 있는 훈계자였다.

그는 드디어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자신이 **메시아**의 선구자(先驅者)가 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의심을 버리고, 서기 25년 3월 어느 날, 짧기는 했지만 찬란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대중 설교자로서 **엔게디**를 떠났다.

5. 하나님 나라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행동 무대에 나타났던 당시 **유대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거의 100년이나 궁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 이방 군주들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모세**는 가르치기를, 정의는 반드시 번영과 권

as the promised deliverer of the Jewish nation from the domination of their gentile rulers.

135:4.4 (1499.4) Throughout this period John read much in the sacred writings which he found at the Engedi home of the Nazarites. He was especially impressed by Isaiah and by Malachi, the last of the prophets up to that time. He read and reread the last five chapters of Isaiah, and he believed these prophecies. Then he would read in Malachi: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he sha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ward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ward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And it was only this promise of Malachi that Elijah would return that deterred John from going forth to preach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to exhort his fellow Jews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John was ripe for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but this expectation of the coming of Elijah held him back for more than two years. He knew he was not Elijah. What did Malachi mean? Was the prophecy literal or figurative? How could he know the truth? He finally dared to think that, since the first of the prophets was called Elijah, so the last should be known, eventually, by the same name. Nevertheless, he had doubts, doubts sufficient to prevent his ever calling himself Elijah.

135:4.5 (1499.5) It was the influence of Elijah that caused John to adopt his methods of direct and blunt assault upon the sins and vices of his contemporaries. He sought to dress like Elijah, and he endeavored to talk like Elijah; in every outward aspect he was like the olden prophet. He was just such a stalwart and picturesque child of nature, just such a fearless and daring preacher of righteousness. John was not illiterate, he did well know the Jewish sacred writings, but he was hardly cultured. He was a clear thinker, a powerful speaker, and a fiery denunciator. He was hardly an example to his age, but he was an eloquent rebuke.

135:4.6 (1499.6) At last he thought out the method of proclaiming the new age, the kingdom of God; he settled that he was to become the herald of the Messiah; he swept aside all doubts and departed from Engedi one day in March of A.D. 25 to begin his short but brilliant career as a public preacher.

5. THE KINGDOM OF GOD

135:5.1 (1500.1) In order to understand John's messag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status of the Jewish people at the time he appeared upon the stage of action.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all Israel had been in a quandary; they were at a loss to explain their continuous subjugation to

력으로 보상받는다 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나? **다윗** 왕권은 왜 버림받고 공석이 됐나? **모세**의 교리와 **유대** 선지자들의 훈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이런 민족적 처참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와 **요한**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새로운 학파의 종교 선생들, 즉 종말론자들이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이 선생들은, 자신이 나라의 죄에 대한 대가{代價}를 치르고 있다는 구실로, **유대인**의 고통과 굴욕을 설명하려는 믿음 체계를 전개시켰다. 그들은 지난날의 **바벨론** 및 다른 나라 포로생활을 설명하도록 설정된, 잘 알려진 이유들로 후퇴했다. 그러나 그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야하며; 자기들의 고난의 날들은 거의 끝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훈련은 거의 끝났으며;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가르쳤다. **로마** 통치의 종료는 그 시대의 종료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새로운 이 선생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깊이 의존했고, 창조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세상 나라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끈기 있게 가르쳤다. 당시 **유대인** 정신 속에서는, 이것이 **요한**의 교훈과 **예수**의 교훈의 골자가 됐던 그 단어--곧 하늘 나라--의 의미였다. **팔레스틴**의 **유대인**에게 “하늘 나라”는 단지 한 가지 의미가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곧 **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한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의미했다.

요한의 시대에 모든 **유대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은 얼마나 빨리 오게 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방 나라의 통치는 곧 끝나리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온 **유대** 사회에는,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대의 열망이 달성되리라는, 생기 넘치는 희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다.

유대인은, 도래{到來}할 천국의 본질에 대한 추측에서는 크게 달랐던 반면, 그 사건이 박두했고, 가까이, 심지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나 같이 믿었다. **구약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은, **다윗 왕**의 후계자, 즉 온 세상의 정당하고 의로운 통치자로 인정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적들로부터 해방돼서 재건{再建}될 **유대** 나라를 위한 새로운 왕이, 빠른 시일 내에 **팔레스틴**에 나타나리라고 문자 그대로 고대했다.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독실한 다른 **유대인** 집단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래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세상은 어떤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gentile overlords. Had not Moses taught that righteousness was always rewarded with prosperity and power? Were they not God's chosen people? Why was the throne of David desolate and vacant? In the light of the Mosaic doctrines and the precepts of the prophets the Jews found it difficult to explain their long-continued national desolation.

135:5.2 (1500.2) About one hundred years before the days of Jesus and John a new school of religious teachers arose in Palestine, the apocalyptists. These new teachers evolved a system of belief that accounted for the sufferings and humiliation of the Jew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paying the penalty for the nation's sins. They fell back onto the well-known reasons assigned to explain the Babylonian and other captivities of former times. But, so taught the apocalyptists, Israel should take heart; the days of their affliction were almost over; the discipline of God's chosen people was about finished; God's patience with the gentile foreigners was about exhausted. The end of Roman rule was synonymous with the end of the age and, in a certain sense, with the end of the world. These new teachers leaned heavily on the predictions of Daniel, and they consistently taught that creation was about to pass into its final stage; the kingdoms of this world were about to become the kingdom of God. To the Jewish mind of that day this was the meaning of that phrase — the kingdom of heaven — which runs throughout the teachings of both John and Jesus. To the Jews of Palestine the phrase “kingdom of heaven” had but one meaning: an absolutely righteous state in which God (the Messiah) would rule the nations of earth in perfection of power just as he ruled in heaven —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135:5.3 (1500.3) In the days of John all Jews were expectantly asking, “How soon will the kingdom come?” There was a general feeling that the end of the rule of the gentile nations was drawing near. There was present throughout all Jewry a lively hope and a keen expectation that the consummation of the desire of the ages would occur during the lifetime of that generation.

135:5.4 (1500.4) While the Jews differed greatly in their estimates of the nature of the coming kingdom, they were alike in their belief that the event was impending, near at hand, even at the door. Many who read the Old Testament literally looked expectantly for a new king in Palestine, for a regenerated Jewish nation delivered from its enemies and presided over by the successor of King David, the Messiah who would quickly be acknowledged as the rightful and righteous ruler of all the world. Another, though smaller, group of devout Jews held a vastly different view of this kingdom of God. They taught that the coming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that the world was

땅”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이 나라는 영속하는 지배권이 되리라는 것, 죄는 끝나리라는 것, 그리고 새 나라의 시민은 이런 끝없는 복을 누리면서 불멸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쳤다.

제거하거나 정화하는 어떤 강렬한 징계가, 이 세상에 새 나라를 설립하기 전에 필요하리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모든 불신자를 파괴할 세계 전쟁이 계속되는 한편, 신실한 자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심령가(心靈家)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대심판(大審判)으로 예고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심판이, 불의한 자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심판과 마지막 파멸로 내쫓는 동시에, 선택된 백성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들을 통치할 **사람의 아들**과 함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후자(後者)의 집단은, 많은 경건한 이방인도 새 나라 공동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믿기까지 했다.

일부 **유대인**은, **하나님**이 직접 신성하게 간섭함으로써, 새로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중재(仲裁)하는 대표자인 **메시아**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 시대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서만 간직될 수 있었다. **메시아**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 또는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킬 수는 없었다. **유대인**은 그런 모든 신성한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시아**는 선지자 이상이 돼야 했으며,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인 그 새 나라의 설립을 이끌어야 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통적 **유대인**의 감각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누가 이런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점에서도 역시 **유대**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구세대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교리를 붙들었다. 신세대는, 새 나라는 하늘의 나라이므로, 새 통치자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오래 앉아 계셨던 신성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새 나라의 통치자를 그렇게 상상했던 그들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곧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 **왕자**로 그를 바라봤고, 이 세상 통치권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하면서 오래 기다려왔다. **요한**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 국가의 종교적 배경이 그랬다.

그러므로, 도래할 나라에 대한 **요한**의 발표는, 그의 정열적인 설교를 듣는 자들의 정신 속에,

approaching its certain end, and that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ere to usher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that this kingdom was to be an everlasting dominion, that sin was to be ended, and that the citizens of the new kingdom were to become immortal in their enjoyment of this endless bliss.

135:5.5 (1500.5) All were agreed that some drastic purging or purifying discipline would of necessity preced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ingdom on earth. The literalists taught that a world-wide war would ensue which would destroy all unbelievers, while the faithful would sweep on to universal and eternal victory. The spiritists taught that the kingdom would be ushered in by the great judgment of God which would relegate the unrighteous to their well-deserved judgment of punishment and final destruction, at the same time elevating the believing saints of the chosen people to high seats of honor and authority with the Son of Man, who would rule over the redeemed nations in God's name. And this latter group even believed that many devout gentiles might be admitted to the fellowship of the new kingdom.

135:5.6 (1501.1) Some of the Jews held to the opinion that God might possibly establish this new kingdom by direct and divine intervention, but the vast majority believed that he would interpose some representative intermediary, the Messiah. And that was the only possible meaning the term Messiah could have had in the minds of the Jews of the generation of John and Jesus. *Messiah* could not possibly refer to one who merely taught God's will or proclaimed the necessity for righteous living. To all such holy persons the Jews gave the title of *prophet*. The Messiah was to be more than a prophet; the Messiah was to br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ingdom, the kingdom of God. No one who failed to do this could be the Messiah in the traditional Jewish sense.

135:5.7 (1500.7) Who would this Messiah be? Again the Jewish teachers differed. The older ones clung to the doctrine of the son of David. The newer taught that, since the new kingdom was a heavenly kingdom, the new ruler might also be a divine personality, one who had long sat at God's right hand in heaven. And strange as it may appear, those who thus conceived of the ruler of the new kingdom looked upon him not as a human Messiah, not as a mere *man*, but as “the Son of Man” — a Son of God — a heavenly Prince, long held in waiting thus to assume the rulership of the earth made new. Such was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Jewish world when John went forth proclaim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135:5.8 (1500.8) It becomes apparent, therefore, that John's announcement of the coming kingdom had

여섯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졌음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했던 구절들에 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든지, **유대인** 나라를 기대했던 이런 여러 집단의 각 사람은, 듣는 이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권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진지하고 열렬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의로움과 회개의 설교자의 선포에 매료됐다.

6. 전도하기 시작한 요한

서기 25년 3월 초순에, **요한**은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서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으로 여행했는데, 그 강은 **예슈아**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약속된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건너서 지나간, 고대의 유서 깊은 곳이었으며; 그는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강 입구 근처에 자리 잡았고, 강을 건너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모든 **요단강** 건널목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요한**은 분명히 설교자 이상의 사람이었다. **유대지방** 광야에서 온 이 이상한 사람에게 귀 기울였던 대부분의 사람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으면서 떠났다. 지친 가운데 기다리던 이 **유대인** 혼들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동요됐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전체 **유대** 역사에서, 신앙심 깊은 **아브라함** 자녀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안”을 갈망하거나, 그렇게 열렬하게 “천국의 회복”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 **유대** 역사 전체에서, **요한**이 **요단**의 남쪽 건널목의 독을 건너 그토록 신비하게 나타난 이때만큼, 그가 전파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심오하고 보편적인 호소를 제시한 적도 없었다.

그는 **아모스**처럼 목자 출신이었다. 그는 옛 **엘리아**처럼 옷을 입었고, “**엘리아**의 영과 능력”으로 우렁차게 훈계했으며, 경고를 퍼부었다. 이 이상한 설교자가 **요단강** 주변에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여행자들이 멀리까지 전하게 되자, 그가 **팔레스틴** 전역에 굉장한 동요(動搖)를 일으켰음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 **나실인** 설교자의 활동에는 또 다른 새로운 특색이 있었는데: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비록 세례가 **유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예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한**이 시행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었다. 이방인 개종자들을 성전 바깥쪽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던 관습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유대인**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이 전도와 세례를 시작한 때부터, **헤롯**

not less than half a dozen different meanings in the minds of those who listened to his impassioned preaching. But no matter what significance they attached to the phrases which John employed, each of these various groups of Jewish-kingdom expectants was intrigued by the proclamations of this sincere, enthusiastic, rough-and-ready preacher of righteousness and repentance, who so solemnly exhorted his hearers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6. JOHN BEGINS TO PREACH

135:6.1 (1501.4) Early in the month of March, A.D. 25, John journeyed around the western coast of the Dead Sea and up the river Jordan to opposite Jericho, the ancient ford over which Joshua and the children of Israel passed when they first entered the promised land; and crossing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river, he established himself near the entrance to the ford and began to preach to the people who passed by on their way back and forth across the river. This was the most frequented of all the Jordan crossings.

135:6.2 (1501.5) It was apparent to all who heard John that he was more than a preacher. The great majority of those who listened to this strange man who had come up from the Judean wilderness went away believing that they had heard the voice of a prophet. No wonder the souls of these weary and expectant Jews were deeply stirred by such a phenomenon. Never in all Jewish history had the devout children of Abraham so longed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or more ardently anticipate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Never in all Jewish history could John’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ave made such a deep and universal appeal as at the very time he so mysteriously appeared on the bank of this southern crossing of the Jordan.

135:6.3 (1502.1) He came from the herdsmen, like Amos. He was dressed like Elijah of old, and he thundered his admonitions and poured forth his warnings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strange preacher created a mighty stir throughout all Palestine as the travelers carried abroad the news of his preaching along the Jordan.

135:6.4 (1502.2) There was still another and a new feature about the work of this Nazirite preacher: He baptized every one of his believers in the Jordan “for the remission of sins.” Although baptism was not a new ceremony among the Jews, they had never seen it employed as John now made use of it. It had long been the practice thus to baptize the gentile proselytes into the fellowship of the outer court of the temple, but never had the Jews themselves been asked to submit to the baptism of repentance. Only fifteen

안티파스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갈 때까지는 겨우 15개월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에 10만 명 훨씬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요한은 **요단강**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베다니** 개울가에서 4개월 동안 전도했다. 그의 수많은 청중 가운데는, 호기심 때문에 왔던 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유대지방**, **베레아**,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리고 더러는 **갈릴리**에서 오기도 했다.

이 해 5월에, **요한**이 아직 **베다니** 개울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권위로 전도하는지 묻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에게 대표단을 보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요한**이 대답했다.“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순탄한 계곡이 될 것이요, 모든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노라고, 가서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라.”

요한은, 담대하지만 체치 없는 설교자였다. 어느 날, 그가 **요단강**의 서쪽 강둑에서 전도하며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 무리와 몇 명의 **사두개인**이 앞으로 나와서 세례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요한**은 그들을 물속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 집단 전체에게 말했다.“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지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진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개의 돌로도, 너희 앞에서 능히 **아브라함**의 합당한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가 언급한 열두 개의 돌은, ‘열두 지파’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너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아[여호수아]**가 바로 그 지점에 세운 기념비였다.)

요한은 제자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르쳤고,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려고 애썼다. 그는 선생들에게, 율법의 내용뿐 아니라 영성{靈性}도 함께 가르치도록 조언했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가르쳤으며; 세금 징수원들에게는:“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라”고 했다. 군인들에게는:“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옳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 말라--너희 보수에 만족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시대의 종말을 위해 준비하라--하늘 나라가 가까이

months intervened between the time John began to preach and baptize and his arrest and imprisonment at the instigation of Herod Antipas, but in this short time he baptized considerably over one hundred thousand penitents.

135:6.5 (1502.3) John preached four months at Bethany ford before starting north up the Jordan. Tens of thousands of listeners, some curious but many earnest and serious, came to hear him from all parts of Judea, Perea, and Samaria. Even a few came from Galilee.

135:6.6 (1502.4) In May of this year, while he still lingered at Bethany ford, the priests and Levites sent a delegation out to inquire of John whether he claimed to be the Messiah, and by whose authority he preached. John answered these questioners by saying: “Go tell your masters that you have hear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as spoken by the prophet, saying,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brought low; the uneven ground shall become a plain, while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a smooth valley;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135:6.7 (1502.5) John was a heroic but tactless preacher. One day when he was preaching and baptizing on the west bank of the Jordan, a group of Pharisees and a number of Sadducees came forward and presented themselves for baptism. Before leading them down into the water, John, addressing them as a group said: “Who warned you to flee, as vipers before the fire, from the wrath to come? I will baptize you, but I warn you to bring forth fruit worthy of sincere repentance if you would receive the remission of your sins. Tell me not that Abraham is your father. I declare that God is able of these twelve stones here before you to raise up worthy children for Abraham. And even now is the ax laid to the very roots of the trees. Every tree that brings not forth good fruit is destined to be cut down and cast into the fire.” (The twelve stones to which he referred were the reputed memorial stones set up by Joshua to commemorate the crossing of the “twelve tribes” at this very point when they first entered the promised land.)

135:6.8 (1502.6) John conducted classes for his disciples, in the course of which he instructed them in the details of their new life and endeavored to answer their many questions. He counseled the teachers to instruct in the spirit as well as the letter of the law. He instructed the rich to feed the poor; to the tax gatherers he said: “Extort no more than that which is assigned you.” To the soldiers he said: “Do no violence and exact nothing wrongfully — be content with your wages.” While he counseled all: “Make ready for the end of the age

왔다”고 조언했다.

—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7. 북쪽으로 가는 요한

요한은 도래할 나라와 그 왕에 대해서 여전히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전도를 오래 할수록 더 혼동됐지만, 도래할 나라의 본질에 관한 지적{知的} 불확실성이, 천국의 임박한 출현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그의 신념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했다. **요한**은 정신으로는 혼동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천국의 통치자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다윗** 왕권이 복권되리라는 관념에 **요한**이 매달리는 동안에는,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토록 오래 기다려 온 구원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듯 했지만; 영적인 나라의 교리와 이 세상에서 일시적 시대의 종말에 더 치우치던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예수**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몹시 의심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의문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 사춘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명시한 약속에 어긋났다.

요한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예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는 **요단강**을 거슬러 여행하면서 열두 곳 이상 머물렀다. 제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라고 직접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이”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담**에서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보다 위대한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엎드려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키를 손에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리할 것이며;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교훈을 계속 확장시켰는데,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자신의 모호한 초기 메시지와 비교할 때, 좀 더 유용하고 위안이 되는 내용을 나날이 첨가했다. 이때가 되자, 군중이 **갈릴리**와 **대가볼리**에서 몰려왔다. 날이 거듭되면서, 많은 진지한 신도가 존경하는 선생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다.

8. 예수와 요한의 만남

서기 25년 12월, **요한**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펠라** 근처에 있을 즈음에, 그의 명성이 온 **팔레스틴**에 퍼졌고, 그의 활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서 최고 화젯거리가 됐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이야기했으며, 이것이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로 하여금, 회

7. JOHN JOURNEYS NORTH

135:7.1 (1503.1) John still had confused ideas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its king. The longer he preached the more confused he became, but never did this intellectual uncertainty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coming kingdom in the least lessen his conviction of the certainty of the kingdom's immediate appearance. In mind John might be confused, but in spirit never. He was in no doubt about the coming kingdom, but he was far from certain as to whether or not Jesus was to be the ruler of that kingdom. As long as John held to the idea of the restoration of the throne of David, the teachings of his parents that Jesus, born in the City of David, was to be the long-expected deliverer, seemed consistent; but at those times when he leaned more toward the doctrine of a spiritual kingdom and the end of the temporal age on earth, he was sorely in doubt as to the part Jesus would play in such events. Sometimes he questioned everything, but not for long. He really wished he might talk it all over with his cousin, but that was contrary to their expressed agreement.

135:7.2 (1503.2) As John journeyed north, he thought much about Jesus. He paused at more than a dozen places as he traveled up the Jordan. It was at Adam that he first made reference to “another one who is to come after me” in answer to the direct question which his disciples asked him, “Are you the Messiah?” And he went on to say: “There will come after me one who is greater than I, whose sandal strap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loose.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his shovel is in his hand thoroughly to cleanse his threshing floor; he will gather the wheat into his garner, but the chaff will he burn up with the judgment fire.”

135:7.3 (1503.3)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of his disciples John continued to expand his teachings, from day to day adding more that was helpful and comforting compared with his early and cryptic message: “Repent and be baptized.” By this time throngs were arriving from Galilee and the Decapolis. Scores of earnest believers lingered with their adored teacher day after day.

8. MEETING OF JESUS AND JOHN

135:8.1 (1503.4) By December of A.D. 25, when John reached the neighborhood of Pella in his journey up the Jordan, his fame had extended throughout all Palestine, and his work had become the chief topic of conversation in all the towns about the lake of Galilee. Jesus had spoken favorably of John's message, and this had caused many from

개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종파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세베대**의 아들인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이 **펠라** 근처에서 전도를 시작한 직후인 12월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요한**을 만나러 갔고, 그 전도자의 활동에 대해 서로 보고 들은 것을 **예수**에게 전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때 **유다**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회당에서 **예수**의 설교를 경청한 다음, 그들의 계획에 대해 그와 상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서기 26년 1월 12일의 일이었다. **예수**는 그 의논을 내일로 미루자고 했으며, 그때 대답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다. 그는 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에 대해 조언을 주기로 계획했다.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평상시처럼 배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했다. **야고보**와 **유다**가 점심을 갖고 도착했지만, 아직 점심 휴식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목재실에서 그를 기다렸고, 그런 문제에서 **예수**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잘 알았다.

예수는 점심 휴식시간 직전에 연장들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었으며, 그와 함께 작업장에 있던 세 명의 일꾼에게, “이제 나의 때가 왔다”는 말만 했다. 그는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나가서, “나의 때가 왔다--같이 **요한**에게 가자”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펠라**를 향해서 떠났고, 점심은 여행 도중에 먹었다. 이것은 1월 13일 일요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요단** 계곡에서 그날 밤을 지냈고,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는 다음 날 정오 무렵에 도착했다.

요한은 그날의 지원자들에 대한 세례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회개하는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서있었고, **예수**와 두 동생도, 도래할 나라에 대한 **요한**의 전도를 믿는 열성적인 남녀 대열 속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도에 관한 **예수**의 의견을 들었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매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의 행렬 속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요한은 그토록 많은 개종자에게 신속히 세례를 주는 세부적 일에 몰두해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기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을 때, 육신으로는 사촌인 그에게 인사하는 동안 예식은 잠시 중지됐고, 그는 “왜 당신이 나를 만나러 강까지 내려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네게 세례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요한**이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나

Capernaum to join John's cult of repentance and baptism. James and John the fishermen sons of Zebedee had gone down in December, soon after John took up his preaching position near Pella, and had offered themselves for baptism. They went to see John once a week and brought back to Jesus fresh, firsthand reports of the evangelist's work.

135:8.2 (1503.5) Jesus' brothers James and Jude had talked about going down to John for baptism; and now that Jude had come over to Capernaum for the Sabbath services, both he and James, after listening to Jesus' discourse in the synagogue, decided to take counsel with him concerning their plans. This was on Saturday night, January 12, A.D. 26. Jesus requested that they postpone the discussion until the following day, when he would give them his answer. He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being in close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He had arranged to have noontime lunch with his brothers and to advise them concerning baptism by John. That Sunday morning Jesus was working as usual in the boatshop. James and Jude had arrived with the lunch and were waiting in the lumber room for him, as it was not yet time for the midday recess, and they knew that Jesus was very regular about such matters.

135:8.3 (1504.1) Just before the noon rest, Jesus laid down his tools, removed his work apron, and merely announced to the three workmen in the room with him, “My hour has come.” He went out to his brothers James and Jude, repeating, “My hour has come — let us go to John.” And they started immediately for Pella, eating their lunch as they journeyed. This was on Sunday, January 13. They tarried for the night in the Jordan valley and arrived on the scene of John's baptizing about noon of the next day.

135:8.4 (1504.2) John had just begun baptizing the candidates for the day. Scores of repentants were standing in line awaiting their turn when Jesus and his two brothers took up their positions in this line of earnest men and women who had become believers in John's preaching of the coming kingdom. John had been inquiring about Jesus of Zebedee's sons. He had heard of Jesus' remarks concerning his preaching, and he was day by day expecting to see him arrive on the scene, but he had not expected to greet him in the line of baptismal candidates.

135:8.5 (1504.3) Being engrossed with the details of rapidly baptizing such a large number of converts, John did not look up to see Jesus until the Son of Man stood in his immediate presence. When John recognized Jesus, the ceremonies were halted for a moment while he greeted his cousin in the flesh and asked, “But why do you come down into the water to greet me?” And Jesus answered, “To be subject to your baptism.” John replied: “But I have

옵니까?” 그러자 **예수**는 **요한**에게 속삭이면서 말했다: “이제 내 말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서 있는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나의 때가 왔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음성은 단호했고 권위 있었다. 서기 26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 **요한**은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 줄 준비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전율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와 두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요한**이 이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 때, 그날 나머지 세례는 다음 날 정오에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아직 물속에 서있던 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의 환영{幻影}이 잠시 **예수**의 머리 바로 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에서 나와 그들을 떠났고, 동쪽 언덕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다시 보지 못했다.

요한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던,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예수**에게 이야기했다. **요한**은 **예수**에게, “이제 나는 당신이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예수**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9. 40일간의 전도

요한이 (당시에 늘 그와 함께 거주하던 25내지 30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세례와 관련돼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요한**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에게 전했는데도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자,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30여명 되는 이 무리는 별 빛 아래서 오래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날의 체험이 있는 후, **요한**의 전도는 도래할 나라와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해 새롭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40일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단한 위력으로 전도를 계속했으며, 이 무렵에는 **요단강**에서 **요한** 주변에 모여드는 넘쳐나는 군중에게 그의 제자들도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40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소문이

need to be baptized by you. Why do you come to me?” And Jesus whispered to John: “Bear with me now, for it becomes us to set this example for my brothers standing here with me, and that the people may know that my hour has come.”

135:8.6 (1504.4) There was a tone of finality and authority in Jesus' voice. John was atremble with emotion as he made ready to baptize Jesus of Nazareth in the Jordan at noon on Monday, January 14, A.D. 26. Thus did John baptize Jesus and his two brothers James and Jude. And when John had baptized these three, he dismissed the others for the day, announcing that he would resume baptisms at noon the next day. As the people were departing, the four men still standing in the water heard a strange sound, and presently there appeared for a moment an apparition immediately over the head of Jesus, and they heard a voice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A great change came over the countenance of Jesus, and coming up out of the water in silence he took leave of them, going toward the hills to the east. And no man saw Jesus again for forty days.

135:8.7 (1504.5) John followed Jesus a sufficient distance to tell him the story of Gabriel's visit to his mother ere either had been born, as he had heard it so many times from his mother's lips. He allowed Jesus to continue on his way after he had said, “Now I know of a certainty that you are the Deliverer.” But Jesus made no reply.

9. FORTY DAYS OF PREACHING

135:9.1 (1505.1) When John returned to his disciples (he now had some twenty-five or thirty who abode with him constantly), he found them in earnest conference, discussing what had just happened in connection with Jesus' baptism. They were all the more astonished when John now made known to them the story of the Gabriel visitation to Mary before Jesus was born, and also that Jesus spoke no word to him even after he had told him about this. There was no rain that evening, and this group of thirty or more talked long into the starlit night. They wondered where Jesus had gone, and when they would see him again.

135:9.2 (1505.2) After the experience of this day the preaching of John took on new and certain notes of proclamation concerning the coming kingdom and the expected Messiah. It was a tense time, these forty days of tarrying, waiting for the return of Jesus. But John continued to preach with great power, and his disciples began at about this time to preach to the overflowing throngs which gathered around John at the Jordan.

135:9.3 (1505.3) In the course of these forty days of

근방에, 그리고 **디베라**와 **예루살렘**까지도 퍼졌다. 수천 명이 **요한**의 야영지에서 새로운 흥밋거리인, 소문난 **메시아**를 보려고 모여들었지만,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언덕으로 갔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자, 많은 사람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의심했다.

예수가 떠난 지 약 3주 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바리새인**의 새로운 대표단이 **펠라**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인지 **엘리아**인지 직접 물었으며;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당신은 **메시아**인가?”라고 대답하게 물었고,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이 **엘리아**도,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면서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요한**이 대답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 말하겠지만,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세례 주실 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40일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기간이었다. **예수**와 **요한**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토의 제목으로 제시됐다. 정치적 흥정과 이기적인 자리다툼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관념과 개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토론이 일어났다. 그는 군대 지도자가 되고 **다윗**의 왕좌를 이을 것인가? **예수**가 **가나안** 사람을 취했던 것처럼, 그가 **로마** 군대를 무찌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를 세우려 올 것인가? **요한** 자신도, 하늘 나라의 설립에 관한 이 사명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자기 마음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소수 의견 편에 서있었다.

이런 날들은 **요한**의 체험에서 분투를 요하는 날이었고, 그는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찾기 위한 수색대를 조직했으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다: “우리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2월 23일 **안식일** 이른 아침에, **요한**의 일행은 아침식사를 하는 중에 북쪽을 보다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요한**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내가 광야로부터 나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너희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 받으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세례 줄 분이 오고 계시다. 나는 신성한 영이 이 분 위에 강림하심을 봤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

waiting, many rumors spread about the countryside and even to Tiberias and Jerusalem. Thousands came over to see the new attraction in John's camp, the reputed Messiah, but Jesus was not to be seen. When the disciples of John asserted that the strange man of God had gone to the hills, many doubted the entire story.

135:9.4 (1505.4) About three weeks after Jesus had left them, there arrived on the scene at Pella a new deputation from the priests and Pharisees at Jerusalem. They asked John directly if he was Elijah or the prophet that Moses promised; and when John said, “I am not,” they made bold to ask, “Are you the Messiah?” and John answered, “I am not.” Then said these men from Jerusalem: “If you are not Elijah, nor the prophet, nor the Messiah, then why do you baptize the people and create all this stir?” And John replied: “It should be for those who have heard me and received my baptism to say who I am, but I declare to you that, while I baptize with water, there has been among us one who will return to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135:9.5 (1505.5) These forty days were a difficult period for John and his disciples. What was to be the relation of John to Jesus? A hundred questions came up for discussion. Politics and selfish preferment began to make their appearance. Intense discussions grew up around the various ideas and concepts of the Messiah. Would he become a military leader and a Davidic king? Would he smite the Roman armies as Joshua had the Canaanites? Or would he come to establish a spiritual kingdom? John rather decided, with the minority, that Jesus had com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although he was not altogether clear in his own mind as to just what was to be embraced within this 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135:9.6 (1505.6) These were strenuous days in John's experience, and he prayed for the return of Jesus. Some of John's disciples organized scouting parties to go in search of Jesus, but John forbade, saying: “Our times are in the hands of the God of heaven; he will direct his chosen Son.”

135:9.7 (1505.7) It was early on the morning of Sabbath, February 23, that the company of John, engaged in eating their morning meal, looked up toward the north and beheld Jesus coming to them. As he approached them, John stood upon a large rock and, lifting up his sonorous voice, said: “Behold the Son of God, the deliverer of the world! This is he of whom I have said, ‘After me there will come one who is preferred before me because he was before me.’ For this cause came I out of the wilderness to preach repentance and to baptize with water, proclaiming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now comes one who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I beheld the divine

었다.”

예수께서는 **요한**과 같이 앉아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계속하도록 권했는데, 그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후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는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나리라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전도와 사명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단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지금이나 미래에도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위대한 이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요단강** 강변에서 헤어졌고, 육신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10. 남쪽으로 가는 요한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로 가버리셨으므로, **요한**은 왔던 길로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3월 3일 일요일 아침에,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동안에 **요한**의 가까운 제자 가운데 약 4분의 1은 **예수**를 좇아 **갈릴리**로 떠났다. **요한**에게는 혼란에 빠진 슬픈 기색이 있었다. 그는 **예수**께 세례 주기 이전에 행했던 것 같은 전도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는 어쩐지 도래할 나라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자기 일이 거의 끝난 것처럼 느꼈으며; 마음 둘 곳을 잃었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는 전도하고 세례를 주면서 남쪽으로 계속 여행했다.

요한은 **아담**이라는 마을 가까이서 여러 주 머물렀으며,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 인상적인 공격을 했다. 이 해(서기 26년) 6월경에, **요한**은 **요단강**의 **베다니** 개울가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1년 전에, 도래할 나라에 대한 전도를 시작한 곳이었다. **예수**가 세례 받은 후에 몇 주 동안, **요한**의 설교의 특징은 점차 보통 사람에게 자비를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한편 그는 부패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격렬한 태도로 공공연히 비난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이 그의 행정구역에서 전도했으므로, **요한**과 그 제자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 경계하게 됐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한 **요한**의 공공연한 비난에 분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월 12일 이른 아침,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주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 전에, **헤롯**의 앞잡이들이 **요한**을 체포했다. 여러 주 지나도 그가 석방되지 않자, 그의 제자들은 **팔레스틴** 전역으로 흩어졌고,

spirit descending upon this man, and I heard the voice of God declare,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135:9.8 (1506.1) Jesus bade them return to their food while he sat down to eat with John, his brothers James and Jude having returned to Capernaum.

135:9.9 (1506.2) Early in the morning of the next day he took leave of John and his disciples, going back to Galilee. He gave them no word as to when they would again see him. To John’s inquiries about his own preaching and mission Jesus only said, “My Father will guide you now and in the future as he has in the past.” And these two great men separated that morning on the banks of the Jordan, never again to greet each other in the flesh.

10. JOHN JOURNEYS SOUTH

135:10.1 (1506.3) Since Jesus had gone north into Galilee, John felt led to retrace his steps southward. Accordingly, on Sunday morning, March 3, John and the remainder of his disciples began their journey south. About one quarter of John’s immediate followers had meantime departed for Galilee in quest of Jesus. There was a sadness of confusion about John. He never again preached as he had before baptizing Jesus. He somehow fel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ing kingdom was no longer on his shoulders. He felt that his work was almost finished; he was disconsolate and lonely. But he preached, baptized, and journeyed on southward.

135:10.2 (1506.4) Near the village of Adam, John tarried for several weeks, and it was here that he made the memorable attack upon Herod Antipas for unlawfully taking the wife of another man. By June of this year (A.D. 26) John was back at the Bethany ford of the Jordan, where he had begun his preaching of the coming kingdom more than a year previously. In the weeks following the baptism of Jesus the character of John’s preaching gradually changed into a proclamation of mercy for the common people, while he denounced with renewed vehemence the corrupt political and religious rulers.

135:10.3 (1506.5) Herod Antipas, in whose territory John had been preaching, became alarmed lest he and his disciples should start a rebellion. Herod also resented John’s public criticisms of his domestic affairs. In view of all this, Herod decided to put John in prison. Accordingly, very early in the morning of June 12, before the multitude arrived to hear the preaching and witness the baptizing, the agents of Herod placed John under arrest. As weeks passed and he was not released, his disciples scattered over all Palestine, many of

그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

them going into Galilee to join the followers of Jesus.

11. 감옥에 갇힌 요한

요한은 감옥에서 다소간 쓰라리고 외로운 체험을 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됐던 추종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직 그의 업적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유혹받았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 견디기 어려운 감옥살이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던 이 억센 남자는, 경멸스런 감옥에서 번민하며 1년 반 이상 지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신앙과 충성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 정말로, 이 모든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까지 시험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의 순수성까지 의심하려는 유혹에 여러 번 빠졌다.

감옥에서 여러 달 지낸 후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의 공적{公的} 활동에 대해 보고한 후 말했다: “**선생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사람이 성공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는 물론 죄인까지 함께 식사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감하게 증거 했지만, 그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 내가 말했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너희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기뻐하는 법이다.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분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이 땅에서 왔고, 내가 전할 메시지를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모두보다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靈}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이 제자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떠날 만큼 **요한**의 선언에 놀랐다. **요한** 역시 몹시 동요됐는데, 자신이 예언의 말을 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다시 전적으로 의심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마디 전갈도 그에게 보내지 않는 점과,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점,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점은, 그에게 비통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11. JOHN IN PRISON

135:11.1 (1506.6) John had a lonely and somewhat bitter experience in prison. Few of his followers were permitted to see him. He longed to see Jesus but had to be content with hearing of his work through those of his followers who had become believers in the Son of Man. He was often tempted to doubt Jesus and his divine mission. If Jesus were the Messiah, why did he do nothing to deliver him from this unbearable imprisonment? For more than a year and a half this rugged man of God's outdoors languished in that despicable prison. And this experience was a great test of his faith in, and loyalty to, Jesus. Indeed, this whole experience was a great test of John's faith even in God. Many times was he tempted to doubt even the genuineness of his own mission and experience.

135:11.2 (1507.1) After he had been in prison several months, a group of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after reporting concerning the public activities of Jesus, said: “So you see, Teacher, that he who was with you at the upper Jordan prospers and receives all who come to him. He even feasts with publicans and sinners. You bore courageous witness to him, and yet he does nothing to effect your deliverance.” But John answered his friends: “This man can do nothing unless it has been given him by his Father in heaven. You well remember that I said, ‘I am not the Messiah, but I am one sent on before to prepare the way for him.’ And that I did. 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near by and hears him 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is, my joy, therefore is fulfilled.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 am of this earth and have declared my message. Jesus of Nazareth comes down to the earth from heaven and is above us all. The Son of Man has descended from God, and the words of God he will declare to you. For the Father in heaven gives not the spirit by measure to his own Son. The Father loves his Son and will presently put all things in the hands of this Son.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And these words which I speak are true and abiding.”

135:11.3 (1507.2) These disciples were amazed at John's pronouncement, so much so that they departed in silence. John was also much agitated, for he perceived that he had uttered a prophecy. Never again did he wholly doubt the mission and divinity of Jesus. But it was a sore disappointment to John that Jesus sent him no word, that he came not to see him, and that he exercised none of his great power to deliver him from prison. But

알았다. 그는 **요한**을 매우 사랑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지했고, **요한**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그에게는 위대한 일이 마련돼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요한**의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위대한 설교자요_선지자인 그의 생애의 자연스런 결실과정에 자신이 끼어들기를 자제했다.

감옥에서 이런 장기간의 긴장감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은 믿을만한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다시 물었다: “내 일은 끝났습니까? 나는 왜 감옥에서 괴로워해야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제자가 이 전갈을 **예수**에게 전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 대답했다: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를 잊지 않고 있으며, 나 또한 이것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의를 완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곧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내 사명을 전한 사랑하는 사자{使者}에게, 나를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면, 장차 올 시대에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 고 전해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전갈(傳囑)이었다. 이 전갈이 그를 매우 안심시켰고, 신앙을 굳건하게 했으며, 이 기억할 만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그의 육신의 삶의 비극적 종말을 그에게 준비시켜줬다.

12. 세례 요한의 죽음

체포됐을 때 남쪽 **베레아**에서 일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마케러스**의 요새에 있는 감옥으로 바로 이송됐고, 처형당할 때까지 거기에 감금돼 있었다. **헤롯**은 **갈릴리**뿐 아니라 **베레아**도 다스리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베레아**에서 **유리아**와 **마케러스** 두 군데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공관(公館)이 **세포리**에서 새 수도 **디베라**로 옮겨졌다.

헤롯은 **요한**이 반역을 선동할까 염려해서, 그를 석방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군중이 **요한**을 거룩한 자, 즉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헤롯**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나실인** 설교자를 그냥 감옥에 가둬 놓고 있었다. **요한**은 여러 차례 **헤롯** 앞에 불려갔지만, 만약 석방되는 경우라도, 자기가 **헤롯**의 나라를 떠나거나, 또는 모든 공공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새로운 민심의 동요가, **요한**을 풀어주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헤롯**에게 일깨웠다. 게다가 **요한**은 **헤롯**의 불법 아내인 **헤로디아**를 맹렬하고 혹독하게 미워했다.

헤롯은 하늘 나라에 대해 **요한**과 여러 번 이야기했고, 때로는 **요한**의 메시지에 매우 감명 받

Jesus knew all about this. He had great love for John, but being now cognizant of his divine nature and knowing fully the great things in preparation for John when he departed from this world and also knowing that John's work on earth was finished, he constrained himself not to interfere in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great preacher-prophet's career.

135:11.4 (1507.3) This long suspense in prison was humanly unbearable. Just a few days before his death John again sent trusted messengers to Jesus, inquiring: “Is my work done? Why do I languish in prison? Are you truly the Messiah,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And when these two disciples gave this message to Jesus, the Son of Man replied: “Go back to John and tell him that I have not forgotten but to suffer me also this, for it becomes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 that the poor have good tidings preached to them — and, finally, tell the beloved herald of my earth mission that he shall be abundantly blessed in the age to come if he finds no occasion to doubt and stumble over me.” And this was the last word John received from Jesus. This message greatly comforted him and did much to stabilize his faith and prepare him for the tragic end of his life in the flesh which followed so soon upon the heels of this memorable occasion.

12. DEATH OF JOHN THE BAPTIST

135:12.1 (1508.1) As John was working in southern Perea when arrested, he was taken immediately to the prison of the fortress of Machaerus, where he was incarcerated until his execution. Herod ruled over Perea as well as Galilee, and he maintained residence at this time at both Julias and Machaerus in Perea. In Galilee the official residence had been moved from Sepphoris to the new capital at Tiberias.

135:12.2 (1508.2) Herod feared to release John lest he instigate rebellion. He feared to put him to death lest the multitude riot in the capital, for thousands of Pereans believed that John was a holy man, a prophet. Therefore Herod kept the Nazarite preacher in prison, not knowing what else to do with him. Several times John had been before Herod, but never would he agree either to leave the domains of Herod or to refrain from all public activities if he were released. And this new agitation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ich was steadily increasing, admonished Herod that it was no time to turn John loose. Besides, John was also a victim of the intense and bitter hatred of Herodias, Herod's unlawful wife.

135:12.3 (1508.3) On numerous occasions Herod talked with John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while sometimes seriously impressed with his

기도 했지만,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은 두려워했다.

헤롯은 **디베라**에서 아직도 많은 건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베레아**에 있는 거주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마케러스** 요새를 특히 좋아했다. **디베라**에서 공공건물과 공관{公館}을 완공하려면 아직도 몇 년 더 걸릴 예정이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갈릴리**와 **베레아** 관청의 협의회에서 직위가 높은 다른 사람들과 주요 관원들을 **마케러스**의 궁전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여 달라고 **헤롯**에게 직접 청원{請願}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요한**을 죽이기 위해 간악한 계획을 세우는 과제에 착수했다.

헤로디아는, 저녁 축제와 연회의 순서로, 자기 딸이 연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도록 주선했다. **헤롯**은 그 처녀의 연기에 매우 기분이 좋아졌으며, 딸을 불러서 말했다: “너는 매우 매력 있구나. 나는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네게 주겠다.” 그리고 **헤롯**은 술을 많이 마셔서 몹시 취한 상태로 이 모든 말을 했다. 소녀는 물러가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헤롯**에게 구할 것인지 물었다. **헤로디아**가 말했다: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리고 소녀는 연회 식탁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말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자신의 맹세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병정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날 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병정이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연회장 뒤에 있는 소녀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소녀는 소반을 어머니에게 줬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시체를 가지러 감옥에 왔고, **요한**을 무덤에 묻은 뒤에 **예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message, he was afraid to release him from prison.

135:12.4 (1508.4) Since much building was still going on at Tiberias, Herod spent considerable time at his Perea residences, and he was partial to the fortress of Machaerus. It was a matter of several years before all the public buildings and the official residence at Tiberias were fully completed.

135:12.5 (1508.5) In celebration of his birthday Herod made a great feast in the Machaerian palace for his chief officers and other men high in the councils of the government of Galilee and Perea. Since Herodias had failed to bring about John's death by direct appeal to Herod, she now set herself to the task of having John put to death by cunning planning.

135:12.6 (1508.6) In the course of the evening's festivities and entertainment, Herodias presented her daughter to dance before the banqueters. Herod was very much pleased with the damsel's performance and, calling her before him, said: "You are charming. I am much pleased with you. Ask me on this my birthday for whatever you desire, and I will give it to you, even to the half of my kingdom." And Herod did all this while well under the influence of his many wines. The young lady drew aside and inquired of her mother what she should ask of Herod. Herodias said, "Go to Herod and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And the young woman, returning to the banquet table, said to Herod, "I request that you forthwith give me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135:12.7 (1508.7) Herod was filled with fear and sorrow, but because of his oath and because of all those who sat at meat with him, he would not deny the request. And Herod Antipas sent a soldier, commanding him to bring the head of John. So was John that night beheaded in the prison, the soldier bringing the head of the prophet on a platter and presenting it to the young woman at the rear of the banquet hall. And the damsel gave the platter to her mother. When John's disciples heard of this, they came to the prison for the body of John, and after laying it in a tomb, they went and told Jesus.

제 136편. 세례와 40일 기간

⇨ 135

유랜시아 책

137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6편
세례와 40일 기간

섹션

소개

1. 고대하는 메시아의 개념
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3. 40일
4. 공적 업무를 위한 계획
5. 중대한 첫 결정
6. 둘째 결정
7. 셋째 결정
8. 넷째 결정
9. 다섯째 결정
10. 여섯째 결정

소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전도에 대한 대중적 흥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팔레스틴의 유대 민족이 메시아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공적{公的} 업무를 시작했다. 요한과 예수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요한은 열렬하고 진지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는 침착하고 행복한 노동자였으며;전체 생애에서 오직 몇 번 외에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예수는 세상에 위로를 가져온 위로자였고, 어느 정도는 하나의 본보기였으며;요한은 거의 위로자 또는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요한은 하늘 나라를 전파했지만 그로 인한 행복의 세계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요한을 옛 체제에 속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호평했지만, 새로운 길이 되는 위대한 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나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요한이 다가오는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메시지의 중점은: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전도를 시작했을

PAPER 136

BAPTISM AND THE FORTY DAYS

SECTIONS

Introduction

1.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2. The Baptism of Jesus
3. The Forty Days
4. Plans for Public Work
5. The First Great Decision
6. The Second Decision
7. The Third Decision
8. The Fourth Decision
9. The Fifth Decision
10. The Sixth Decision

INTRODUCTION

136:0.1 (1509.1) JESUS began his public work at the height of the popular interest in John's preaching and at a time when the Jewish people of Palestine were eagerly look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ere was a great contrast between John and Jesus. John was an eager and earnest worker, but Jesus was a calm and happy laborer; only a few times in his entire life was he ever in a hurry. Jesus was a comforting consolation to the world and somewhat of an example; John was hardly a comfort or an example. He preached the kingdom of heaven but hardly entered into the happiness thereof. Though Jesus spoke of John as the greatest of the prophets of the old order, he also said that the least of those who saw the great light of the new way and entered thereby into the kingdom of heaven was indeed greater than John.

136:0.2 (1509.2) When John preached the coming kingdom, the burden of his message was: Repent! flee from the wrath to come. When Jesus began to preach, there remained the exhortation to

때, 회개하라는 권고는 같았지만, 그런 메시지 다음에는, 복음, 즉 새로운 나라의 기쁨과 자유라는 유쾌한 소식이 반드시 따라왔다.

1. 고대하는 메시아의 개념

유대인은 고대하는 구원자에 관한 많은 관념을 품었으며, **메시아**를 가르치는 색다른 이 학파들은 각각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히브리** 성서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그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가 되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에는 이 구원자를 “**주의 중**”으로 그렸고, 그다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또한 더 후대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는 “**다윗의 아들**”로 칭했더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은 “**주의 중**”으로부터,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

요한과 **예수**의 시대에 학식 있는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는 “**주의 중**”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라는 삼중 직책을 겸비한 채, 완전하게 된 대표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개발했다.

모세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그들의 선조를 구했던 것처럼, 곧 오실 **메시아**는, 더 큰 기적의 권능과 인종적 승리의 경이로움으로 **유대** 백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열렬하게 믿었다. 랍비들은, 분명한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스스로 단언하는, 거의 500개 이상의 구절을 **성서**에서 수집해 왔다. 그리고 이런 시간적, 기술적, 기능적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인격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하게 잊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는 **유대**의 국가적 영광의 회복을--곧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지위 향상을--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신 속에 자리 잡은 이런 세속적 **메시아** 개념을, **나사렛 예수**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들이 예언적인 이 기록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면, 그들에게 **메시아** 예언으로 통했던 것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가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요, 모든 민족을 향한 자비와 구원의 새롭고 더 나은 섭리시대를 시작하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을 매우 자연스럽게 준비시켰을 것이다.

유대인은 **쉐키나** 교리를 믿도록 양육 받았다. 그러나 **신성한 현현**(顯現)이라고 일컫는 이 상징은 성전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

repentance, but such a message was always followed by the gospel, the good tidings of the joy and liberty of the new kingdom.

1.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136:1.1 (1509.3) The Jews entertained many ideas about the expected deliverer, and each of these different schools of Messianic teaching was able to point to statements in the Hebrew scriptures as proof of their contentions. In a general way, the Jews regarded their national history as beginning with Abraham and culminating in the Messiah and the new age of the kingdom of God. In earlier times they had envisaged this deliverer as “the servant of the Lord,” then as “the Son of Man,” while latterly some even went so far as to refer to the Messiah as the “Son of God.” But no matter whether he was called the “seed of Abraham” or “the son of David,” all were agreed that he was to be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Thus did the concept evolve from the “servant of the Lord” to the “son of David,” “Son of Man,” and “Son of God.”

136:1.2 (1509.4) In the days of John and Jesus the more learned Jews had developed an idea of the coming Messiah as the perfected and representative Israelite, combining in himself a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threefold office of prophet, priest, and king.

136:1.3 (1509.5) The Jews devoutly believed that, as Moses had delivered their fathers from Egyptian bondage by miraculous wonders, so would the coming Messiah deliver the Jewish people from Roman domination by even greater miracles of power and marvels of racial triumph. The rabbis had gathered together almost five hundred passages from the Scriptures which, notwithstanding their apparent contradictions, they averred were prophetic of the coming Messiah. And amidst all these details of time, technique, and function, they almost completely lost sight of the *personality* of the promised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a restoration of Jewish national glory — Israel’s temporal exaltation — rather than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It therefore becomes evident that Jesus of Nazareth could never satisfy this materialistic Messianic concept of the Jewish mind. Many of their reputed Messianic predictions, had they but viewed these prophetic utterances in a different light, would have very naturally prepared their minds for a recognition of Jesus as the terminator of one age and the inaugurator of a new and better dispensation of mercy and salvation for all nations.

136:1.4 (1510.1) The Jews had been brought up to believe in the doctrine of the *Shekinah*. But this reputed symbol of the Divine Presence was not to be seen in the temple. They believed that the

야가 도래하면 이 상징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족이 죄를 짓는다는 관념,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가정하는 관념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더러는 **아담**의 죄가 인간 종족을 저주받게 했는데, **메시아**가 이런 저주를 없애고 사람을 신성한 호의로 회복시킨다고 가르쳤다. 더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모두 그 존재 속에 집어넣었다고 가르쳤으며; 그가 이런 작업 결과를 보시고 매우 실망했고,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치던 자들은, 선천적으로 악한 이런 본성에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민족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의 냉담함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 계속 고통당한다고 믿었다. **유대** 나라는 아직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회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요한**의 설교가 강력하고 즉각적인 호소력을 나타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든지 하늘 나라라는 말을 오직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곧 **메시아**의 도래였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미가엘** 증여의 한 가지 특색이 있었으며, 그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라는 두 본성의 **함동**이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완전하게 된 인간, 초인간, 그리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다양하게 생각해왔지만,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 **함동**한다는 개념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초기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개념; **다니엘**과 후기 선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제시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초인간 관념; 그리고 심지어 **에녹서** 저자 및 동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묘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붙잡았지만; 인간적이고 신성한 두 본성이 이 세상의 한 인격 안에 **함동**한다는 참된 개념은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창조주**가 피조물 형상으로 육신화 한다는 사실은, 과거에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계시됐으며; **창조주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그 영역의 필사자들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coming of the Messiah would effect its restoration. They held confusing ideas about racial sin and the supposed evil nature of man. Some taught that Adam's sin had cursed the human race, and that the Messiah would remove this curse and restore man to divine favor. Others taught that God, in creating man, had put into his being both good and evil natures; that when he observed the outworking of this arrangement, he was greatly disappointed, and that “He repented that he had thus made man.” And those who taught this believed that the Messiah was to come in order to redeem man from this inherent evil nature.

136:1.5 (1510.2) The majority of the Jews believed that they continued to languish under Roman rule because of their national sins and because of the halfheartedness of the gentile proselytes. The Jewish nation had not wholeheartedly repented; therefore did the Messiah delay his coming. There was much talk about repentance; wherefore the mighty and immediate appeal of John's preaching, “Repent and be baptized,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the kingdom of heaven could mean only one thing to any devout Jew: The coming of the Messiah.

136:1.6 (1510.3) There was one feature of the bestowal of Michael which was utterly foreign to the Jewish conception of the Messiah, and that was the *union* of the two natures,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Jews had variously conceived of the Messiah as perfected human, superhuman, and even as divine, but they never entertained the concept of the *union* of the human and the divine. And this was the great stumbling block of Jesus' early disciples. They grasped the human concept of the Messiah as the son of David, as presented by the earlier prophets; as the Son of Man, the superhuman idea of Daniel and some of the later prophets; and even as the Son of God, as depicted by the author of the Book of Enoch and by certain of his contemporaries; but never had they for a single moment entertained the true concept of the union in one earth personality of the two natures,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incarnation of the Creator in the form of the creature had not been revealed beforehand. It was revealed only in Jesus; the world knew nothing of such things until the Creator Son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the mortals of the realm.

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전도가 절정에 달해서, **팔레스틴**이 그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붙고, 온 **유대 민족**이 심각하고 엄숙하게 반성할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의 인종적 연대감은 굉장히 뿌리 깊었다. **유대인**은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를 괴롭

2. THE BAPTISM OF JESUS

136:2.1 (1510.4) Jesus was baptized at the very height of John's preaching when Palestine was aflame with the expectancy of his message —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 when all Jewry was engaged in serious and solemn self-examination. The Jewish sense of racial solidarity was very profound. The Jews not only believed that the sins

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사람 모두가, **요한**이 비난했던 특정한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심 깊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 편에서 모르고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지연될까봐 두려워했다. 죄가 있고 죄로 저주받은 민족에 속해 있다고 느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세례 받으러 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족 참회의 결실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개의 제레나 죄 사함을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예수**께서 **요한**의 손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의 본보기를 따른 것뿐이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는 정신을 정복하고 영{靈}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진화로 올라갈 수 있는 절정에 도달한, 그 영역의 한 필사자였다. 그는 그날,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완전하게 된 한 필사자로서 **요단강**에 서 있었다. 완전한 일치와 온전한 대화가, **예수**의 필사 정신과,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의 선물인 내주하는 영 **조울사** 사이에서 이뤄지게 됐다. **미가엘**이 자기 우주의 우두머리로 상승한 후부터, 바로 그런 **조울사**가,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정상 존재 안에 거하게 됐으며, **예수**의 **조울사**는 예외인데, 그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했던 다른 초인간, 즉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유사하게 내주함으로써, 이런 특별 사명을 미리 준비했다.

그 영역의 한 필사자가 그토록 높은 수준의 완전한 인격을 달성할 때, 대개는 영적으로 높아지는 예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필사자의 성숙한 혼이, 그와 관련된 신성한 **조울사**와 궁극에 융합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예수**께서 두 동생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간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인격 체험 속에서 일어나도록 명백하게 예정돼 있었다. 이 예식은 그가 **유란시아**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를 끝내는 마지막 무대였고, **조울사**와, 그 **조울사**가 내주한 정신이 융합됨을 목격하리라고, 많은 초인간 참관자가 기대했지만,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고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예수** 위에 손을 얹자, 내주하던 **조울사**가, 완전하게 된 **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혼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신성한 실체는, **인격화된 조울사**로서, 그리고 **네바돈** 지방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동류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디비닝톤**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전에 있었던 신성한 영이 인격화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낙원**에서 근원된 바로 그 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예수**의 두 동생과 **요한** 역시

of the father might afflict his children, but they firmly believed that the sin of one individual might curse the nation. Accordingly, not all who submitted to John's baptism regarded themselves as being guilty of the specific sins which John denounced. Many devout souls were baptized by John for the good of Israel. They feared lest some sin of ignorance on their part might delay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y felt themselves to belong to a guilty and sin-cursed nation, and they presented themselves for baptism that they might by so doing manifest fruits of race penitence. It is therefore evident that Jesus in no sense received John's baptism as a rite of repentance or for the remission of sins. In accepting baptism at the hands of John, Jesus was only following the example of many pious Israelites.

136:2.2 (1511.1) When Jesus of Nazareth went down into the Jordan to be baptized, he was a mortal of the realm who had attained the pinnacle of human evolutionary ascension in all matters related to the conquest of mind and to self-identification with the spirit. He stood in the Jordan that day a perfected mortal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Perfect synchrony and full communication had become established between the mortal mind of Jesus and the indwelling spirit Adjuster, the divine gift of his Father in Paradise. And just such an Adjuster indwells all normal beings living on Urantia since the ascension of Michael to the headship of his universe, except that Jesus' Adjuster had been previously prepared for this special mission by similarly indwelling another superhuma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Machiventa Melchizedek.

136:2.3 (1511.2) Ordinarily, when a mortal of the realm attains such high levels of personality perfection, there occur those preliminary phenomena of spiritual elevation which terminate in eventual fusion of the matured soul of the mortal with its associated divine Adjuster. And such a change was apparently due to take place in the personality experience of Jesus of Nazareth on that very day when he went down into the Jordan with his two brothers to be baptized by John. This ceremony was the final act of his purely human life on Urantia, and many superhuman observers expected to witness the fusion of the Adjuster with its indwelt mind, but they were all destined to suffer disappointment. Something new and even greater occurred. As John laid his hands upon Jesus to baptize him, the indwelling Adjuster took final leave of the perfected human soul of Joshua ben Joseph. And in a few moments this divine entity returned from Divinington as a Personalized Adjuster and chief of his kind throughout the entir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us did Jesus observe his own former divine spirit descending on its return to him in personalized form. And he heard this same spirit of Paradise origin now speak,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이 말을 들었다. 물가에 서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듣지 못했고, **인격화된 조울사**의 출현도 보지 못했다. **인격화된 조울사**는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방금 신분이 높아져서 돌아온 **인격화된 조울사**가 그렇게 말씀할 때,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네명이 물 속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까이 있는 **조울사**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인격화된 조울사**가 제시한 환상을 봤는데, 필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육신화 된 삶을 끝낸 후에 이뤄질 모습이었다. 이런 천상(天上)의 환상은 **예수**계만 보였다.

요한과 **예수**가 들었던 것은, **만유의 아버지** 대신 말했던, **인격화된 조울사**의 소리였는데, 그 **조울사**는 **낙원 아버지**께 속하고 **낙원 아버지**와 같기 때문이다. 이 **인격화된 조울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나머지 생애 내내, 그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와 관련돼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고양된 이 **조울사**와 항상 교류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아무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헌신하는 세례였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호출인, **아버지**의 명백한 부르심을 들었고, 이런 복합적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 위해, 40일 동안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동역자들과 활발한 개인적 만남을 그렇게 얼마동안 피함으로써, 상승하는 필사자가 **만유의 아버지**의 내적 현존과 융합할 때마다 모른시아 세계들에서 거치는 바로 그 과정을, 자신이 처한 상태 그대로 **유란시아**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이 세례의 날에, **예수**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는 끝났다. 신성한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했고,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육신화한 **아들**을 발견하셨으며,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눴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을 당시에, 거의 서른한 살 반이었다. **누가**는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15년째 왕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므로, 이 해는 서기 29년이 돼야 하지만, **티베리우스**가 서기 11년 10월에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을 주조했고, **아우구스투스**와 2년 반 동안 함께 황제로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실질적 통치 가운데 15년째 되는 해는, **예수**가 세례를 받던 바로 서기 26년이 된다. 또한 이 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지방** 통치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한 해이

am well pleased.” And John, with Jesus’ two brothers, also heard these words. John’s disciples, standing by the water’s edge, did not hear these words, neither did they see the appari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nly the eyes of Jesus beheld the Personalized Adjuster.

136:2.4 (1511.3) When the returned and now exalted Personalized Adjuster had thus spoken, all was silence. And while the four of them tarried in the water, Jesus, looking up to the near-by Adjuster, prayed: “My Father who reign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When he had praye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Son of Man saw the vision, presented by the now Personalized Adjuster, of himself as a Son of God as he was before he came to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as he would be when the incarnated life should be finished. This heavenly vision was seen only by Jesus.

136:2.5 (1512.1) It was the voi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that John and Jesus heard, speaking in behalf of the Universal Father, for the Adjuster is of, and as, the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e remainder of Jesus’ earth life this Personalized Adjuster was associated with him in all his labors; Jesus was in constant communion with this exalted Adjuster.

136:2.6 (1512.2) When Jesus was baptized, he repented of no misdeeds; he made no confession of sin. His was the baptism of consecr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At his baptism he heard the unmistakable call of his Father, the final summons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and he went away into private seclusion for forty days to think over these manifold problems. In thus retiring for a season from active personality contact with his earthly associates, Jesus, as he was and on Urantia, was following the very procedure that obtains on the morontia worlds whenever an ascending mortal fuses with the inner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136:2.7 (1512.3) This day of baptism ended the purely human life of Jesus. The divine Son has found his Father, the Universal Father has found his incarnated Son, and they speak the one to the other.

136:2.8 (1512.4) (Jesus was almost thirty-one and one-half years old when he was baptized. While Luke says that Jesus was baptized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which would be A.D. 29 since Augustus died in A.D. 14, it should be recalled that Tiberius was coemperor with Augustus for two and one-half years before the death of Augustus, having had coins struck in his honor in October, A.D. 11. The fifteenth year of his actual rule was, therefore, this very year of A.D. 26, that of Jesus’ baptism. And this was also the year that Pontius Pilate began his rule as

기도 하다.)

governor of Judea.)

3. 40일

헤르몬 산에서 이슬을 맞던 6주 동안, **예수**께서는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하는 생애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큰 유혹을 견뎌 냈었다. 그는 **헤르몬 산**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의 거짓말쟁이, 즉 이 세계 왕자인 **캘리가스차**를 만나 격퇴시켰다. 우주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결정적인 날에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가 됐다. 그리고 곧 **네바돈**의 최고 **주권자**로서 선포될, **유란시아**의 이 **왕자**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그 방법을 결정짓기 위해, 40일 간의 고립기간에 돌입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조율사**가 인격 화됨으로써,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달라진 관계에 자신을 맞추기 위한, 40일 동안의 은둔생활로 들어갔다. **베레아** 언덕에서 지낸 이 격리기간에, 그는 새롭고 변화된 이 세상 생애의 국면 속에서, 자신이 곧 시작하고 추구해야 할 정책과 사용될 방법을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금식{禁食}을 목적으로 자기 혼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행자{苦行者}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모든 생각을 영원히 폐지시키려 왔다. 이렇게 떠나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 **엘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마저 움직였던 이유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낙원 아버지**께서 감독하는, 자신이 만든 우주 및 온갖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그때 완전히 자각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란시아**에 육신화되어 들어오기 전에, 형님인 **임마누엘**이 부과한 지시와 증여에 따른 책무를 온전히 상기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방대한 관계를 명료하고 충분하게 납득했으며, 이 세상과 자기 지방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를 위한 공적 책무를 실행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그 진행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용히 명상하려고 얼마 동안 떠나 있기 원했다.

예수께서는 적당한 거처를 찾아 언덕을 오르다가, 그의 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인 **가브리엘**을 만나게 됐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직접 교통하는 경로를 재_수립했으며;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려고 **에덴시아**로 가면서, **살빙톤**에서 동역자들을 떠난 이래, 그들이 직접 대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의 권위에 의거해서, 이제 그가 우주에 대한 완전하

3. THE FORTY DAYS

136:3.1 (1512.5) Jesus had endured the great temptation of his mortal bestowal before his baptism when he had been wet with the dews of Mount Hermon for six weeks. There on Mount Hermon, as an unaided mortal of the realm, he had met and defeated the Urantia pretender, Caligastia, the prince of this world. That eventful day, on the universe records, Jesus of Nazareth had become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is Prince of Urantia, so soon to be proclaimed supreme Sovereign of Nebadon, now went into forty days of retirement to formulate the plans and determine upon the technique of proclaiming the new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6:3.2 (1512.6) After his baptism he entered upon the forty days of adjusting himself to the changed relationships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occasioned by the personalization of his Adjuster. During this isolation in the Perean hills he determined upon the policy to be pursued and the methods to be employed in the new and changed phase of earth life which he was about to inaugurate.

136:3.3 (1512.7) Jesus did not go into retirement for the purpose of fasting and for the affliction of his soul. He was not an ascetic, and he came forever to destroy all such notions regarding the approach to God. His reasons for seeking this retirement were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had actuated Moses and Elijah, and even John the Baptist. Jesus was then wholly self-conscious concerning his relation to the universe of his making and also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supervised by the Paradise Father, his Father in heaven. He now fully recalled the bestowal charge and its instructions administered by his elder brother, Immanuel, ere he entered upon his Urantia incarnation. He now clearly and fully comprehended all these far-flung relationships, and he desired to be away for a season of quiet meditation so that he could think out the plans and decide upon the procedures for the prosecution of his public labors in behalf of this world and for all other worlds in his local universe.

136:3.4 (1513.1) While wandering about in the hills, seeking a suitable shelter, Jesus encountered his universe chief executive,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Nebadon. Gabriel now re-established personal communication with the Creator Son of the universe; they met directly for the first time since Michael took leave of his associates on Salvington when he went to Edentia preparatory to entering upon the Urantia bestowal. Gabriel, by direction of Immanuel and on authority of the Uversa Ancients of Days, now laid before

게 된 주권을 획득했고, 루시퍼 반역의 종결에 관한 한 그의 유란시아 증여 체험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다. 전자{前者}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의 증여가 완전하고 완료됐음을, 그의 조울사가 인격화됨으로써 증거했던, 그가 세례 받던 날에 성취됐고, 후자{後者}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티그랏이라는 소년을 만나러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날 성취됐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였다. 예수께서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최고 권위에 입각해서, 주권과 반역에 관계되는 자신의 개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점에서는 자신의 증여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이때 통보받았다. 그는 세례 받던 날 있었던 환상과, 자신에게 내주했던 사고 조울사가 인격화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미 낙원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았다.

그가 가브리엘과 대화하며 산에 머무는 동안, 에덴시아 성좌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 앞에 직접 나타나서 말했다.“모든 기록이 완료됐습니다. 미가엘 611,121 번이 네바돈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은, 완성된 상태로 만유의 아버지의 오른 편에 보존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원자요 형님인 임마누엘이 보낸,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하는 일을 해제{解除}한다는 소식을, 당신께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어느 때든지,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육신화 증여를 끝내고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주권을 받고, 훌륭하게 획득된 네바돈의 무조건적 통치권을 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우주에서 모든 죄와 반란을 종결시키면서,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런 가능한 격동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한 없는 권위를 당신께 드리면서, 태고 항존자의 허락으로 연방우주 기록이 완성됐음을 또한 증언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당신의 업무가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필사자 육신 속에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행로는 당신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 아버지가 떠나자, 예수께서는 우주 복지에 관해 가브리엘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유란시아에서 자신이 시작하려는 일을 행하는 동안, 살빙톤에서 부과됐던 증여 이전의 지시와 관련하여 이미 받은 조언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고 확신을 줬다.

이런 격리된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찾아 다녔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까지 여러 번 왔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4. 공적 업무를 위한 계획

Jesu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his bestowal experience on Urantia was practically finished so far as concerned the earning of the perfect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and the termin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The former was achieved on the day of his baptism when the personalization of his Adjuster demonstrated the perfection and completion of his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e latter was a fact of history on that day when he came down from Mount Hermon to join the waiting lad, Tiglath. Jesus was now informed, upon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that his bestowal work was finished in so far as it affected his personal status in relation to sovereignty and rebellion. He had already had this assurance direct from Paradise in the baptismal vision and in the phenomenon of the personalization of his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36:3.5 (1513.2) While he tarried on the mountain, talking with Gabriel, the Constellation Father of Edentia appeared to Jesus and Gabriel in person, saying: “The records are completed. The sovereignty of Michael number 611,121 over his universe of Nebadon rests in completion at the right hand of the Universal Father. I bring to you the bestowal release of Immanuel, your sponsor-brother for the Urantia incarnation. You are at liberty now or at any subsequent time, in the manner of your own choosing, to terminate your incarnation bestowal, ascend to the right hand of your Father, receive your sovereignty, and assume your well-earned unconditional rulership of all Nebadon. I also testify to the completion of the records of the superuniverse, by authoriz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having to do with the termination of all sin-rebellion in your universe and endowing you with full and unlimited authority to deal with any and all such possible upheavals in the future. Technically, your work on Urantia and in the flesh of the mortal creature is finished. Your course from now on is a matter of your own choosing.”

136:3.6 (1513.3) When the Most High Father of Edentia had taken leave, Jesus held long converse with Gabriel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universe and, sending greetings to Immanuel, proffered his assurance that, in the work which he was about to undertake on Urantia, he would be ever mindful of the counsel he had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prebestowal charge administered on Salvington.

136:3.7 (1514.1) Throughout all of these forty days of isolatio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were engaged in searching for Jesus. Many times they were not far from his abiding place, but never did they find him.

4. PLANS FOR PUBLIC WORK

예수께서는 언덕에서 날마다, **유란시아** 중여 가운데 남은 부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요한**과 중첩되는 시기에는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한**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감옥에 갇혀서 갑자기 중단되기 전에는, 대체로 물러서 있기로 계획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두려움 없고 요령 없는 전도가 곧 집권자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일으킬 것을 잘 알았다. **요한**의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를 위하여, 공적 책무 계획표를 명확히 입안하기 시작했다. **미가엘**의 필사자 중여가 **유란시아**에서 이뤄졌지만, **네바돈** 전체 세계를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자신의 계획표를 **요한**의 동향에 맞춰 조절한다는 대체적인 계획을 고려한 후에, 처음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시를 마음 속에 다시 살피보는 것이었다. 수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행성에 어떤 영구적 문서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다시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예수**께서는, 모래 위를 제외하고, 다시는 어떤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다음 번 **나사렛** 방문 때, 목판에 써서 목공소 주위에 걸어뒀던, 그리고 고향집 벽에 걸려있던, 자신이 쓴 글씨를 모두 없애버렸는데, 동생 **요셉**을 매우 슬프게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면해야 할 세상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관하여 **임마누엘**이 줬던 조언을 곰곰이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이 40일 격리 기간에 금식하지 않았다.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가장 긴 기간은, 언덕에서 너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 잊었던, 첫 이틀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그는 이 기간에, 이 세계 또는 어떤 다른 세계의 어떤 악한 영 또는 반역한 어떤 인격체의 유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 40일은,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사이에 최종 협의가 이뤄진 경우, 아니 오히려 두 정신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처음으로 정말로 활동하는 경우였다. 결정적인 이 명상 기간으로부터 생긴 결과는, 결국 신성한 정신이 인간 지능을 성공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했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정신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정신이 됐고, 비록 사람의 정신의 자아성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지만, 영성화(靈性化)된 이 인간 정신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런 획기적 시기의 진행사항들은, 굶주리고 허약해진 정신이 망상적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라는 나중에 붙여진 기록처럼, 혼란되고 미숙한 상징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된 다양한 **유란시아** 중여 생애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선의 봉사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으로 격리된 다른 모든 구체(球體)를 개

136:4.1 (1514.2) Day by day, up in the hills, Jesus formulated the plans for the remainder of his Urantia bestowal. He first decided not to teach contemporaneously with John. He planned to remain in comparative retirement until the work of John achieved its purpose, or until John was suddenly stopped by imprisonment. Jesus well knew that John's fearless and tactless preaching would presently arouse the fears and enmity of the civil rulers. In view of John's precarious situation, Jesus began definitely to plan his program of public labors in behalf of his people and the world, in behalf of every inhabited world throughout his vast universe. Michael's mortal bestowal was on Urantia but for all worlds of Nebadon.

136:4.2 (1514.3) The first thing Jesus did, after thinking through the general plan of co-ordinating his program with John's movement, was to review in his mind the instructions of Immanuel. Carefully he thought over the advice given him concerning his methods of labor, and that he was to leave no permanent writing on the planet. Never again did Jesus write on anything except sand. On his next visit to Nazareth, much to the sorrow of his brother Joseph, Jesus destroyed all of his writing that was preserved on the boards about the carpenter shop, and which hung upon the walls of the old home. And Jesus pondered well over Immanuel's advice pertaining to hi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 toward the world as he should find it.

136:4.3 (1514.4) Jesus did not fast during this forty days' isolation. The longest period he went without food was his first two days in the hills when he was so engrossed with his thinking that he forgot all about eating. But on the third day he went in search of food. Neither was he tempted during this time by any evil spirits or rebel personalities of station on this world or from any other world.

136:4.4 (1514.5) These forty days were the occasion of the final conference between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or rather the first real functioning of these two minds as now made one. The results of this momentous season of meditation demonstrated conclusively that the divine mind has triumphantly and spiritually dominated the human intellect. The mind of man has become the mind of God from this time on, and though the selfhood of the mind of man is ever present, always does this spiritualized human mind say,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136:4.5 (1514.6) The transactions of this eventful time were not the fantastic visions of a starved and weakened mind, neither were they the confused and puerile symbolisms which afterward gained record as the “temptations of Jesus in the wilderness.” Rather was this a season for thinking over the whole eventful and varied career of the Urantia bestowal and for the careful laying of those

선하는 데 무엇이든지 기여하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그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기간이었다. **예수**께서는, **안돈**과 **원타** 시대로부터, **아담**이 직 무에 태만했던 때를 지나서, **살렘**의 **멜기세덱**이 사역하던 시기에 이르는, **유란시아**의 인간 생애 전체 범위를 두루 숙고했다.

유란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기로 선택할 경우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가브리엘**은 **예수**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예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우주 주권 또는 **루시퍼** 반역의 종결과 아무 상관없을 것임을 그에게 분명히 알렸다. 세상을 보살피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자신의 방법 --이 세상에서 당면한 필요성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우주에서 당면한 계발{啓發}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적당하고 이익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방법.

2. **아버지**의 방법 --온갖 우주를 다스리는 **낙원** 행정부에 참여하는 높은 인격체들이 구상한, 피조물 생애의 멀리 내다보는 이상{理想}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남은 지상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음이 **예수**께 분명해졌다. 각 방법마다, 당장의 상황에 비추어 간주해 볼 때 장점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두 진행 방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우주 주권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은 이미 해결된, 온갖 우주에서 기록으로 봉인된 문제였고, 친히 요구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신화를 시작했듯이, 자신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도 그토록 고귀하게 끝낼 수 있다면, **낙원** 형제 **임마누엘**을 매우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예수**께 전달됐다. 이 격리 기간에서 3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를 완료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갈 것과, 두 가지 길이 관여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아버지** 뜻을 선택하기로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그 결심대로 충실히 살았다. 쓰라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자주적인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시켰다.

산 속 광야에서 지낸 40일은, 큰 유혹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였다. 자신과 외롭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현존과--곧 **인격화된 조울사**와--교제를 나누는 이 기간에, (그에게는 더 이상 개인 스랍 수호자가 없었고) 그는 이 세상에서 나머지 생애를 위한 정책과 진행을 통제하게 될, 위대한 결정에 하나씩 도달하게 됐다. **헤르몬 산**에서 분투했던 것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들과 혼동됨으로써, 또 더 나아가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들이 자신의 공적 생애를 이런 기대되는 금식과

plans for further ministry which would best serve this world while also contributing something to the betterment of all other rebellion-isolated spheres. Jesus thought over the whole span of human life on Urantia, from the days of Andon and Fonta, down through Adam's default, and on to the ministry of the Melchizedek of Salem.

136:4.6 (1514.7) Gabriel had reminded Jesus that there were two ways in which he might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in case he should choose to tarry on Urantia for a time. And it was made clear to Jesus that his choice in this matter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either his universe sovereignty or the termin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These two ways of world ministry were:

136:4.7 (1515.1) 1. His own way — the way that might seem most pleasant and profitab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immediate needs of this world and the present edification of his own universe.

136:4.8 (1515.2) 2. The Father's way — the exemplification of a farseeing ideal of creature life visualized by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36:4.9 (1515.3) It was thus made clear to Jesus that there were two ways in which he could orde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Each of these ways had something to be said in its favor as it might be regarded in the light of the immediate situation. The Son of Man clearly saw that his choice between these two modes of conduct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his reception of universe sovereignty; that was a matter already settled and sealed on the record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only awaited his demand in person. But it was indicated to Jesus that it would afford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great satisfaction if he, Jesus, should see fit to finish up his earth career of incarnation as he had so nobly begun it, always subject to the Father's will. On the third day of this isolation Jesus promised himself he would go back to the world to finish his earth career, and that in a situation involving any two ways he would always choose the Father's will. And he lived 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always true to that resolve. Even to the bitter end he invariably subordinated his sovereign will to that of his heavenly Father.

136:4.10 (1515.4) The forty days in the mountain wilderness were not a period of great temptation but rather the period of the Master's great decisions. During these days of lone communion with himself and his Father's immediate presence — the Personalized Adjuster (he no longer had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 he arrived, one by one, at the great decisions which were to control his policies and conduct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Subsequently the tradition of a great temptation became attached to this period of isolation through confusion with the fragmentary

기도 기간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큰 유혹이라는 전승이 나중에 이 격리 기간에 덧붙여졌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이든지 직면할 때, **아버지**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 교제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항상 해오던 습관이었다.

예수는 이 세상 나머지 생애를 위한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 심정에 항상 비탄을 느꼈다:

1. 그의 사람들이--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영적인 새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싶은 강한 욕구를 품었다. 그리고 그는, 도래하는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다.

2. **아버지**가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삶을 살면서 일하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계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그리고 천국을 설립함으로써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기.

이런 중대한 날들 내내, **예수**께서는 **베이트 아디스**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은신처인 바위 동굴에서 지냈다. 그는 이 바위 동굴 근처 언덕 옆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

5. 중대한 첫 결정

자신과, 그리고 **인격화된 조울사**와 이 협의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는 **네바돈**의 집합된 천상의 무리를 환상으로 봤는데,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도록 그들의 사령관이 보냈다. 이 강력한 무리는 12군단의 스라빔과, 우주의 지성체 가운데 각 계층에서 온 균등한 숫자의 인격체들을 포함했다. 그리고 **예수**가 고립돼있는 기간에 내려야 할 중대한 첫 결정은, **유란시아**에서 공적 업무 계획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강력한 인격체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이 방대한 집단 가운데 한 인격체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전반적 결정에도, 이 방대한 무리는 **주권자**의 한 마디 명령이라도 즉각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그의 나머지 지상생애 기간 내내 남아있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인격체들을 인간의 눈으로 항상 볼 수는 없었지만, 그와 연합된 **인격화된 조울사**는 그들 전부를 항상 봤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언덕에서 40일의 격리생활을 끝내고 내려오

narratives of the Mount Hermon struggles, and further because it was the custom to have all great prophets and human leaders begin their public careers by undergoing these supposed seasons of fasting and prayer. It had always been Jesus' practice, when facing any new or serious decisions, to withdraw for communion with his own spirit that he might seek to know the will of God.

136:4.11 (1515.5) In all this planning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Jesus was always torn in his human heart by two opposing courses of conduct:

136:4.12 (1515.6) 1. He entertained a strong desire to win his people — and the whole world — to believe in him and to accept his new spiritual kingdom. And he well knew their ideas concerning the coming Messiah.

136:4.13 (1515.7) 2. To live and work as he knew his Father would approve, to conduct his work in behalf of other worlds in need, and to continu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to reveal the Father and show forth his divine character of love.

136:4.14 (1515.8) Throughout these eventful days Jesus lived in an ancient rock cavern, a shelter in the side of the hills near a village sometime called Beit Adis. He drank from the small spring which came from the side of the hill near this rock shelter.

5. THE FIRST GREAT DECISION

136:5.1 (1516.1) On the third day after beginning this conference with himself and his Personalized Adjuster, Jesus was presented with the vision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of Nebadon sent by their commanders to wait upon the will of their beloved Sovereign. This mighty host embraced twelve legions of seraphim and proportionate numbers of every order of universe intelligence. And the first great decision of Jesus' isolation had to do with whether or not he would make use of these mighty persona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ensuing program of his public work on Urantia.

136:5.2 (1516.2) Jesus decided that he would *not* utilize a single personality of this vast assemblage unless it should become evident that this was his *Father's will*. Notwithstanding this general decision, this vast host remained with him throughout the balance of his earth life, always in readiness to obey the least expression of their Sovereign's will. Although Jesus did not constantly behold these attendant personalities with his human eyes, his associated Personalized Adjuster did constantly behold, and could communicate with, all of them.

136:5.3 (1516.3) Before coming down from the forty

기 전에, 예수께서는 대기 중인 이런 우주 인격체 무리의 지휘권을, 최근에 **인격화된 조울사**에게 맡겼으며, 모든 부서의 우주 지성체 중에서 선택된 이 인격체들은, 신분이 높아지고 노련한 이 **인격화된 신비 관찰자**의 현명한 지도를 받으면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 이상 충성스럽고 공손하게 활동했다. 이 강력한 집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그 **조울사**는 한때 **낙원 아버지**의 일부였고 본질이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런 개입을 원치 않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지상 생애와 관련되는 일 또는 그것을 위하는 일에, 이 초인적 대행기관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것임을 **예수**께 약속했다.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림으로 인해, **아들**의 이 세상 책무 가운데 어떤 분명한 행동이나 사건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나머지 필사자 생애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어떤 초인적 협동도 받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인격화된 조울사는,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시중드는 우주 무리에 대한 이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우주 피조물 집단은, **창조주**가 위임한 권위로 인해 그 공간 활동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간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제약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 주의시키려고 몹시 애썼다. 그리고 이런 제약은, **조울사**들이 일단 인격화된 후로는 무시간적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따라서 **예수**는, 공간이 개입되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살아있는 지성체들에 대한 **조울사**의 통제가 완전무결할 수 있지만, 시간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약에서는 그렇게 완전할 수 없음을 경고 받았다. **조울사**가 말했다: “당신이 지시한 대로, 나는 당신의 이 세상 생애와 관련된 어떤 방법에서든지 이 시중드는 우주 지성체 무리를 활용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선택한 그의 신성한 뜻이 성취되기 위해 그런 작용을 해 제시키라고 **낙원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경우, 또한 시간에 대해서처럼 자연스런 세상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관계하게 될, 당신의 신성한_인간적인 뜻에 속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당신이 연루될 그런 경우에는 예외다. 그런 모든 경우에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여기에 완전하게 통일된 힘으로 모여 있는 당신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무력할 것이다. 당신의 결합된 본성이 일단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 당신이 선택한 이런 명령은 즉시 실행될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당신의 바램은 시간 단축을 초래하고, 입안된 그 일은 실존으로 **나타난다**. 내 지휘 아래서, 이것이 당신의 잠재적 주권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한 제약의 전부다. 내 자아_의식에는 시간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것에서도, 나는 당신의 피조물을 제한시킬 수 없다.”

days' retreat in the hills, Jesus assigned the immediate command of this attendant host of universe personalities to his recently Personalized Adjuster, and for more than four years of Urantia time did these selected personalities from every division of universe intelligences obediently and respectfully function under the wise guidance of this exalted and experienced Personalized Mystery Monitor. In assuming command of this mighty assembly, the Adjuster, being a onetime part and essence of the Paradise Father, assured Jesus that in no case would these superhuman agencies be permitted to serve, or manifest themselves in connection with, or in behalf of, his earth career unless it should develop that the Father willed such intervention. Thus by one great decision Jesus voluntarily deprived himself of all superhuman co-operation in all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remainder of his mortal career unless the Father might independently choose to participate in some certain act or episode of the Son's earth labors.

136:5.4 (1516.4) In accepting this command of the universe hosts in attendance upon Christ Michael, the Personalized Adjuster took great pains to point out to Jesus that, while such an assembly of universe creatures could be limited in their *space* activities by the delegated authority of their Creator, such limitations were not operative in connection with their function in *time*. And this limitation was dependent on the fact that Adjusters are nontime beings when once they are personalized. Accordingly was Jesus admonished that, while the Adjuster's control of the living intelligences placed under his command would be complete and perfect as to all matters involving *space*, there could be no such perfect limitations imposed regarding *time*. Said the Adjuster: "I will, as you have directed, enjoin the employment of this attendant host of universe intelligences in any manner in connection with your earth career except in those cases where the Paradise Father directs me to release such agencies in order that his divine will of your choosing may be accomplished, and in those instances where you may engage in any choice or act of your divine-human will which shall only involve departures from the natural earth order as to *time*. In all such events I am powerless, and your creatures here assembled in perfection and unity of power are likewise helpless. If your united natures once entertain such desires, these mandates of your choice will be forthwith executed. Your wish in all such matters will constitute the abridgment of time, and the thing projected *is* existent. Under my command this constitutes the fullest possible limitation which can be imposed upon your potential sovereignty. In my self-consciousness time is nonexistent, and therefore I cannot limit your creatures in anything related thereto."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지 알게 됐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간에 관한 문제만 제외하고, 자신이 추구하려는 공적(公的) 사역에, 시중드는 다양한 지성체의 우주 무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따라서 예수의 사역에 부수된 것들 가운데 초자연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초인적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르게 처리하지 않은 한, 전적으로 시간 제거에 따라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해진다.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활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어떤 기적, 자비의 사역, 또는 다른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도, 이렇게 특별히 서술된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유란시아에 살았을 때 사람에게 대한 직무에 확립돼 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의 본질 또는 성질에 해당될 수 없었다. 물론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었다. 한 우주의 이 잠재적 주권자가 밖으로 표현한 바램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 사람의 의지가 직접 분명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시간의 제거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의심스런 행동이나 사건과 관련될 때에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는 효과가 있었다. 예수는, 명백한 시간상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의식하며 지내야 했다.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편에서 어떤 시간 의식에 착오가 생기면, 이 창조주 아들의 정신 속에서 생각된, 그리고 시간 간섭 없이 생각된 그것은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가엘로서는, 연합된 인격화된 조울사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공간에 대해 이 세상에서 친히 하는 활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지만, 시간과 관련될 때에는, 잠재적인 네바돈 주권자로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이 세상 신분을 그렇게 제한시키기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실제 상황이었다.

6. 둘째 결정

예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신성{神性} 신분에 내재하는 잠재성에 비취서 결정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모든 인격체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사물 및 존재에 대해 이제 온전히 자각하는 창조자인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 당장 부딪치게 될 되풀이되는 삶의 상황에서, 이런 창조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던 바로 그 외로운 언덕에서, 벌써 음식을 구하는 일에 이 문제가 대두됐다. 홀로 명상에 잠긴지 3일째 되던 날, 인간적 육신은 점점 배가 고팠다. 그는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음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

136:5.5 (1517.1) Thus did Jesus become apprised of the working out of his decision to go on living as a man among men. He had by a single decision excluded all of his attendant universe hosts of varied intelligences from participating in his ensuing public ministry except in such matters as concerned *time* only. It therefore becomes evident that any possible supernatural or supposedly superhuman accompaniments of Jesus' ministry pertained wholly to the elimination of time unless the Father in heaven specifically ruled otherwise. No miracle, ministry of mercy, or any other possible event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Jesus' remaining earth labors could possibly be of the nature or character of an act transcending the natural laws established and regularly working in the affairs of man as he lives on Urantia *except* in this expressly stated matter of *time*. No limits, of course, could be placed upon the manifestations of "the Father's will." The elimination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pressed desire of this potential Sovereign of a universe could only be avoided by the direct and explicit act of the *will* of this God-man to the effect that time, as related to the act or event in question, *should not be shortened or eliminated*. In order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apparent *time miracles*, it was necessary for Jesus to remain constantly time conscious. Any lapse of time consciousness on his part, in connection with the entertainment of definite desire, was equivalent to the enactment of the thing conceived in the mind of this Creator Son, an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ime.

136:5.6 (1517.2) Through the supervising control of his associated and Personalized Adjuster it was possible for Michael perfectly to limit his personal earth activities with reference to space, but it was not possible for the Son of Man thus to limit his new earth status as potential Sovereign of Nebadon as regards *time*. And this was the actual status of Jesus of Nazareth as he went forth to begin his public ministry on Urantia.

6. THE SECOND DECISION

136:6.1 (1517.3) Having settled his policy concerning all personalities of all classes of his created intelligences, so far as this could be determined in view of the inherent potential of his new status of divinity, Jesus now turned his thoughts toward himself. What would he, now the fully self-conscious creator of all things and beings existent in this universe, do with these creator prerogatives in the recurring life situations which would immediately confront him when he returned to Galilee to resume his work among men? In fact, already, and right where he was in these lonely hills, had this problem forcibly presented itself in the matter of obtaining food. By the third day of his

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 권능을 발휘하여 즉시 준비되는 적당한 육체의 영양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주님**의 중대한 결정이, 너희에게는 --곧 가상(假想)의 적(敵)들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명하라”고 그에게 도전 했다는-- 어떤 유혹으로 표현됐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이 세상 책무에 관하여 또 다른 일관된 방침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가 고려되는 한, 그리고 대체로 다른 인격체들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상으로 실존하는 행로를 추구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이 직접 설립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여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히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인격화된 조율사**로부터 경고 받은 것처럼, 상상 가능한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자연 법칙이 크게 **앞당겨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자신에게 약속할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원칙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르고, 실존하는 사회 조직에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필생과업을 조직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대해 **주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상당하는 삶의 계획표를 선택했다. 그는 다시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결정을 했으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낙원 아버지** 손에 맡겼다.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째 의무가 자아_보존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들에서 사는 자연인(自然人)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따라서 **유란시아** 필사자의 합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지 이 세계와 그것의 피조물에만 관심 두는 것은 아니었으며; 방대한 우주의 다양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 주도록 고안된 인생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세례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왔다. **아버지** 뜻에 대한 바로 그런 필사자의 절대 의존을 계속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자아_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하는 방침을 추구하기로 선택했다. 자기 인간 정신이 잘 알고 있는 **성서**에 있는 말로, 자신이 내린 결론을 구체화시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충동에 관해 최종 선언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쓸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

solitary meditations the human body grew hungry. Should he go in quest of food as any ordinary man would, or should he merely exercise his normal creative powers and produce suitable bodily nourishment ready at hand? And this great decision of the Master has been portrayed to you as a temptation — as a challenge by supposed enemies that he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loaves of bread.”

136:6.2 (1518.1) Jesus thus settled upon another and consistent policy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abors. As far as his personal necessities were concerned, and in general even in his relations with other personalities, he now deliberately chose to pursue the path of normal earthly existence; he definitely decided against a policy which would transcend, violate, or outrage his own established natural laws. But he could not promise himself, as he had already been warned by his Personalized Adjuster, that these natural laws might not, in certain conceivable circumstances, be greatly *accelerated*. In principle, Jesus decided that his lifework should be organized and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natural law and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social organization. The Master thereby chose a program of living which was the equivalent of deciding against miracles and wonders. Again he decided in favor of “the Father’s will”; again he surrendered everything into the hands of his Paradise Father.

136:6.3 (1518.2) Jesus’ human nature dictated that the first duty was self-preservation; that is the normal attitude of the natural man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nd it is, therefore, a legitimate reaction of a Urantia mortal. But Jesus was not concerned merely with this world and its creatures; he was living a life designed to instruct and inspire the manifold creatures of a far-flung universe.

136:6.4 (1518.3) Before his baptismal illumination he had lived in perfect submission to the will and guidance of his heavenly Father. He emphatically decided to continue on in just such implicit mortal dependence on the Father’s will. He purposed to follow the unnatural course — he decided not to seek self-preservation. He chose to go on pursuing the policy of refusing to defend himself. He formulated his conclusions in the words of Scripture familiar to his human mind: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In reaching this conclusion in regard to the appetite of the physical nature as expressed in hunger for food, the Son of Man made his final declaration concerning all other urges of the flesh and the natural impulses of human nature.

136:6.5 (1518.4) His superhuman power he might possibly use for others, but for himself, never. And he pursued this policy consistently to the very end,

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켰는데, 그때 그는:“저가 남은 구원했지만;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당했다--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모세**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사막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를 먹었다고 간주했다. **예수**께서는, 동포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지 잘 알았고,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권능과 영광의 그런 화려한 계획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행로는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呪術師)의 관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아마도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촉진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자신의 법을 초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을 가엾게 여겼으며;그들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즉 그가 올 때 “세상은 그의 열매를 만 배 이상 수확할 것이며, 한 넝쿨에는 천 개의 가지가 있을 것이며, 각 송이마다 천 개의 포도를 맺을 것이며, 포도마다 한 겔론의 포도주를 생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풍성한 기적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은 기적에 근거한 전통과 이적(異蹟)의 전설에 오랫동안 젖어왔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현세의 필요만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자녀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왔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에, 이 세상 자녀들이 그와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려고 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개인의 세력 확장 또는 순전히 이기적인 소득과 영광을 위해, 신성한 제주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악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죄 짓는 것임을, 지켜보는 우주에게 이 결정을 통해서 나타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와 **캘리개스차**의 죄였다.

예수의 이런 위대한 결정은, 이기적 만족감과 감성적 희열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했다. 필사자 실존 속에는 좀 더 높은 가치--곧 지적 숙련과 영적 성취--가 있는데, 사람의 순수한 육체적 식욕과 강한 충동이라는 필연적 만족감을 훨씬 초월한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과 역량은, 더 높은 정신 및 영 능력을 발전시키고 높이는 데 주로 사용돼야 한다.

when it was jeeringly said of him: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 because he would not.

136:6.6 (1518.5) The Jews were expecting a Messiah who would do even greater wonders than Moses, who was reputed to have brought forth water from the rock in a desert place and to have fed their forefathers with manna in the wilderness. Jesus knew the sort of Messiah his compatriots expected, and he had all the powers and prerogatives to measure up to their most sanguine expectations, but he decided against such a magnificent program of power and glory. Jesus looked upon such a course of expected miracle working as a harking back to the olden days of ignorant magic and the degraded practices of the savage medicine men. Possibly, for the salvation of his creatures, he might accelerate natural law, but to transcend his own laws, either for the benefit of himself or the overawing of his fellow men, that he would not do. And the Master's decision was final.

136:6.7 (1518.6) Jesus sorrowed for his people; he fully understood how they had been led up to the expectation of the coming Messiah, the time when “the earth will yield its fruits ten thousandfold, and on one vine there will be a thousand branches, and each branch will produce a thousand clusters, and each cluster will produce a thousand grapes, and each grape will produce a gallon of wine.” The Jews believed the Messiah would usher in an era of miraculous plenty. The Hebrews had long been nurtured on traditions of miracles and legends of wonders.

136:6.8 (1519.1) He was not a Messiah coming to multiply bread and wine. He came not to minister to temporal needs only; he came to reveal his Father in heaven to his children on earth, while he sought to lead his earth children to join him in a sincere effort so to live a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6:6.9 (1519.2) In this decision Jesus of Nazareth portrayed to an onlooking universe the folly and sin of prostituting divine talents and God-given abilities for personal aggrandizement or for purely selfish gain and glorification. That was the sin of Lucifer and Caligastia.

136:6.10 (1519.3) This great decision of Jesus portrays dramatically the truth that selfish satisfaction and sensuous gratification, alone and of themselves, are not able to confer happiness upon evolving human beings. There are higher values in mortal existence — intellectual mastery and spiritual achievement — which far transcend the necessary gratification of man's purely physical appetites and urges. Man's natural endowment of talent and ability should be chiefly devoted to the development and ennoblement of his higher

이렇게 예수께서는, 새롭고 더 낫게 사는 방법, 그 인생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 그리고 공간의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인간으로 실존하면서 심오한 영적 만족감을 얻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피조물에게 드러냈다.

7. 셋째 결정

그의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음식 및 육체적 보살핌 같은 문제들, 즉 자신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신변의 위험에 닥쳤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육신의 생애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 안전에 대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정당한 예방책을 강구하되, 육신상의 생애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 그는 어떤 초인적 개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이런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바로 그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앞으로 좀 튀어나온 바위 위나 무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는 튀어나온 바위에서 자신이 공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고,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필생과업을 실행하는 동안,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의 중재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중대한 첫 결정과, 자아 보존 태도에 대한 둘째 결정을 폐기한다면, 어떤 손상도 입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메시아**를 자기 동포가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를 잘 알았다: “네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도 네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모든 길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아버지**의 중력 법칙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이런 종류의 가정(假定)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 가르침 받고 빗나간 자기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을 아무리 만족시키더라도,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갖 우주에 설립돼 있는 법칙을 의심하게 하는 무익한 행동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개인행동을 고려하는 한, 자신이 제정한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 일하기를 거절했음을 안다면, 너희는 그가 절대로 물위를 걸어 다닌 적이 없었고, 세상을 경영하는 동안 물질적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잘 알 것인데; 물론, **인격화된 조울사**의 관할 아래 놓인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간 요소를 통제(統制)할 힘이 없는 것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전

powers of mind and spirit.

136:6.11 (1519.4) Jesus thus revealed to the creatures of his universe the technique of the new and better way, the higher moral values of living and the deeper spiritual satisfactions of evolutionary human existence on the worlds of space.

7. THE THIRD DECISION

136:7.1 (1519.5) Having made his decisions regarding such matters as food and physical ministrations to the needs of his material body, the care of the health of himself and his associates, there remained yet other problems to solve. What would be his attitude when confronted by personal danger? He decided to exercise normal watchcare over his human safety and to take reasonable precaution to prevent the untimely termination of his career in the flesh but to refrain from all superhuman intervention when the crisis of his life in the flesh should come. As he was formulating this decision, Jesus was seated under the shade of a tree on an overhanging ledge of rock with a precipice right there before him. He fully realized that he could cast himself off the ledge and out into space, and that nothing could happen to harm him provided he would rescind his first great decision not to invoke the interposition of his celestial intelligences in the prosecution of his lifework on Urantia, and provided he would abrogate his second decision concerning his attitude toward self-preservation.

136:7.2 (1519.6) Jesus knew his fellow countrymen were expecting a Messiah who would be above natural law. Well had he been taught that Scripture: “There shall no evil befall you, neither shall any plague come near your dwelling.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to keep you in all your ways. They shall bear you up in their hands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 Would this sort of presumption, this defiance of his Father’s laws of gravity, b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himself from possible harm or, perchance, to win the confidence of his mistaught and distracted people? But such a course, however gratifying to the sign-seeking Jews, would be, not a revelation of his Father, but a questionable trifling with the established law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36:7.3 (1519.7) Understanding all of this and knowing that the Master refused to work in defiance of his established laws of nature in so far as his personal conduct was concerned, you know of a certainty that he never walked on the water nor did anything else which was an outrage to his material order of administering the world; always, of course, bearing in mind that there had, as yet, been found no way whereby he could be wholly delivered from the lack

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 내내, 이 결정에 끊임없이 충실했다. **바리새인**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비웃거나, **갈보리**에서 구경꾼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을 때에도, 그는 그 언덕에서 이때 내렸던 결정을 꾸준히 지켰다.

8. 넷째 결정

이 **하나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심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로 다음의 큰 문제는, 동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가깝게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웅장함과 경탄스러움을 열망하는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우주적 권능을 사용할 것인가? 그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사람의 주목을 끌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풍습을 모두 배제시키는 과정을 따르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 중대한 결정을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가 여러 번 허락했을 때조차, 자신의 치유 사역의 수혜자들이 받은 혜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그들을 타일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는 적(敵)의 조소 어린 도전을 항상 거절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물질 정신을 장악해서 걸음으로만 충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그런 행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매우 현명하게 예견했다. 그는 단순히 기적 행하는 자가 되기를 거절했다. 그는 단 한가지의 과제--곧 하늘 나라 설립--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예수께서 자신과 교류하는 이런 모든 중대한 대화 내내, 의문을 던지고 거의 의심하는 듯한 인간적 요소가 여전히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했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자연에 위배되는 일을 실행하도록 그가 승인한다면, 그것은 진정 그의 인간 정신이 신성한 정신을 경시한 것임을 확실히 알 것이다. 인간 정신의 의심하는 본성에 신성한 정신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신성이 인성과 협력하는 충분한 증거가 바로 **인격화된 조울사**의 현존임을 상기했다.

of control over the element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ose matters pu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136:7.4 (1520.1) Throughout his entire earth life Jesus was consistently loyal to this decision. No matter whether the Pharisees taunted him for a sign, or the watchers at Calvary dared him to come down from the cross, he steadfastly adhered to the decision of this hour on the hillside.

8. THE FOURTH DECISION

136:8.1 (1520.2) The next great problem with which this God-man wrestled and which he presently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concern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any of his superhuman powers should be employed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the attention and winning the adherence of his fellow men. Should he in any manner lend his universe powers to the gratification of the Jewish hankering for the spectacular and the marvelous? He decided that he should not. He settled upon a policy of procedure which eliminated all such practices as the method of bringing his mission to the notice of men. And he consistently lived up to this great decision. Even when he permitted the manifestation of numerous time-shortening ministrations of mercy, he almost invariably admonished the recipients of his healing ministry to tell no man about the benefits they had received. And always did he refuse the taunting challenge of his enemies to “show us a sign” in proof and demonstration of his divinity.

136:8.2 (1520.3) Jesus very wisely foresaw that the working of miracles and the execution of wonders would call forth only outward allegiance by overawing the material mind; such performances would not reveal God nor save men. He refused to become a mere wonder-worker. He resolved to become occupied with but a single task —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136:8.3 (1520.4) Throughout all this momentous dialogue of Jesus' communing with himself, there was present the human element of questioning and near-doubting, for Jesus was man as well as God. It was evident he would never be received by the Jews as the Messiah if he did not work wonders. Besides, if he would consent to do just one unnatural thing, the human mind would know of a certainty that it was in subservience to a truly divine mind. Would it be consistent with “the Father's will” for the divine mind to make this concession to the doubting nature of the human mind? Jesus decided that it would not and cited the presen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as sufficient proof of divinity in partnership with humanity.

예수께서는 이미 많은 여행을 했으며;**로마**,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쿠스**를 회상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을--곧 사람들이 정치와 상거래를 통해 어떻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타협과 외교술로 교역을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이 세상 사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지식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다! 그는 천국을 설립하는 데 모든 세상 지혜와 타협하는 것과 부자들의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 가운데 하나를 행사하는 여러 지름길을 잘 알았다. 국가와 온 세상의 관심을 자신에게 즉각 집중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알았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가 곧 있을 것이며; 그 도시는 방문객들로 넘칠 것이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경이에 찬 군중 앞에서 하늘 위를 걸을 수도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종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곧 다시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인데,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려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길, 자연스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했던 그 길을 앞질러 가려 했던, **캘리개스차**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알았다. **사람의 아들**은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로 했다.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어렵고, 고된 방법으로, 인류의 마음 속에 하늘 나라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세상 자녀는 하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바로 그런 과정을 따라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모든 세대의 자녀 가운데 다수가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교화된 사람으로서 큰 시험, 곧 권력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를 굳건히 물리치는 큰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생애와 체험을 고려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20세기 또는 다른 세기의 필사자가 아닌, 1세기의 인간 정신을 갖고 육신화됐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인간 재능들이 자연스럽게 획득됐다는 관념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그는 그 시대의 유전(遺傳) 및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가 받은 훈련과 교육의 영향으로 빚어진 산물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웠고, 그 시절과 그 세대에 선행(先行)하던 실질적인 지적 상태와 사회 및 경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졌고, 이로 인해 양육됐다. 반면에, 이 **하나님** 사람의 체험에서는, 신성한 정신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의 인간 정신이 작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인간 정신은 그 당시 인간의 환경 조건 아래서 필사자의 정신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거나 영적 진보를 가속

136:8.4 (1520.5) Jesus had traveled much; he recalled Rome, Alexandria, and Damascus. He knew the methods of the world — how people gained their ends in politics and commerce by compromise and diplomacy. Would he utilize this knowledge in the furtherance of his mission on earth? No! He likewise decided against all compromise with the wisdom of the world and the influence of rich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He again chose to depend exclusively on the Father's will.

136:8.5 (1520.6) Jesus was fully aware of the short cuts open to one of his powers. He knew many ways in which the attention of the nation, and the whole world, could be immediately focused upon himself. Soon the Passover would be celebrated at Jerusalem; the city would be thronged with visitors. He could ascend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before the bewildered multitude walk out on the air; that would be the kind of a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But he would subsequently disappoint them since he had not come to re-establish David's throne. And he knew the futility of the Caligastia method of trying to get ahead of the natural, slow, and sure way of accomplishing the divine purpose. Again the Son of Man bowed obediently to the Father's way, the Father's will.

136:8.6 (1521.1) Jesus chos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ankind by natural, ordinary, difficult, and trying methods, just such procedures as his earth children must subsequently follow in their work of enlarging and extending that heavenly kingdom. For well did the Son of Man know that it would be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many of the children of all ages would enter into the kingdom.” Jesus was now passing through the great test of civilized man, to have power and steadfastly refuse to use it for purely selfish or personal purposes.

136:8.7 (1521.2) In your consideration of the life and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it should be ever borne in mind that the Son of God was incarnate in the mind of a first-century human being, not in the mind of a twentieth-century or other-century mortal. By this we mean to convey the idea that the human endowments of Jesus were of natural acquirement. He was the product of the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his time, plus the influence of his training and education. His humanity was genuine, natural, wholly derived from the antecedents of, and fostered by, the actual intellectual status and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at day and generation. While in the experience of this God-man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the divine mind would transcend the human intellect, nonetheless, when, and as, his human mind functioned, it did perform as would a true mortal min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human environment of that day.

136:8.8 (1521.3) Jesus portrayed to all the worlds of

화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 권위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임의의 권세를 나타낼 목적으로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어리석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 보여줬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마카비** 가(家)의 통치로 말미암은 실망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다. 정당하지 않은 인기나 정치적 명성을 얻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오용하기를 거절했다. 신성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국가의 권력이나 국제적인 명성으로 변질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악과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하물며 죄와 결탁하는 것은 더욱 거부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서 **아버지** 뜻에 성공적으로 충성했다.

9. 다섯째 결정

그는 자연 법칙과 영적 권능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적합하도록 정책 현안들을 결정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립하는 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요한**의 사명을 넘겨받을 것인가? 효과적인 노력과 총명한 협동을 위해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즉 적어도 당시에 일반에게 알려진 **메시아**로 더 이상 자신을 간주하지 않으려는,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

유대인은 구원자를, 기적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적을 쳐부수고, **유대인**을 세상 통치자로 만들어 주며,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로 마음 속에 그려왔다. **예수**는 이런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을 뒤엎는 일이고, 그것은 순수하게 영적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았다. 찬란하게 권능을 전시함으로 영적인 나라를 개시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 봤지만--그런 행로는 허락될 것이며 전적으로 **미가엘**의 권한에 속했지만-- 그런 계획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캘리개스차**의 혁명적 기법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자신이 그것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로서 할 일을 마치기로 계획했다.

이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잠재적으로 소유한 이 **하나님** 사람이, 기적을 사용하는 무력 전쟁을 통해서 주권자의 깃발을 휘날리기로 일단 결정했다면 **유란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너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뜻을 준

his vast universe the folly of creating artificial situations for the purpose of exhibiting arbitrary authority or of indulging exceptional power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oral values or accelerating spiritual progress. Jesus decided that he would not lend his mission on earth to a repetition of the disappointment of the reign of the Maccabees. He refused to prostitute his divine attribut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unearned popularity or for gaining political prestige. He would not countenance the transmutation of divine and creative energy into national power or international prestige. Jesus of Nazareth refused to compromise with evil, much less to consort with sin. The Master triumphantly put loyalty to his Father's will above every other earthly and temporal consideration.

9. THE FIFTH DECISION

136:9.1 (1521.4) Having settled such questions of policy as pertained to his individual relations to natural law and spiritual power, he turned his attention to the choice of methods to be employed in the procla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John had already begun this work; how might he continue the message? How should he take over John's mission? How should he organize his followers for effective effort and intelligent co-operation? Jesus was now reaching the final decision which would forbid that he further regard himself as the Jewish Messiah, at least as the Messiah was popularly conceived in that day.

136:9.2 (1522.1) The Jews envisaged a deliverer who would come in miraculous power to cast down Israel's enemies and establish the Jews as world rulers, free from want and oppression. Jesus knew that this hope would never be realized. He knew that the kingdom of heaven had to do with the overthrow of evil in the hearts of men, and that it was purely a matter of spiritual concern. He thought out the advisability of inaugurating the spiritual kingdom with a brilliant and dazzling display of power — and such a course would have been permissible and whol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Michael — but he fully decided against such a plan. He would not compromise with the revolutionary techniques of Caligastia. He had won the world in potential by submission to the Father's will, and he proposed to finish his work as he had begun it, and as the Son of Man.

136:9.3 (1522.2) You can hardly imagine what would have happened on Urantia had this God-man, now in potential possession of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once decided to unfurl the banner of sovereignty, to marshal his wonder-working battalions in militant array! But he would not compromise. He would not serve evil that the worship of God might presumably be derived

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선포하려고 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진리 계시자가 될 것인지, 점점 더 확실하게 감지하게 됐다. **하나님**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머지 인간 체험의 잔이 더 쓴맛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그의 인간 정신도, **다윗**의 왕좌에게는 이제 작별을 고했다. 이 인간 정신은 신성의 통로를 한 걸음씩 따라갔다. 인간 정신은 여전히 질문했지만, 항상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통합된 생애에서, 언제나 신성한 대답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로마는 **서방** 세계의 지배자였다. 이제 격리된 가운데 이런 중대한 결정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지휘 아래 하늘의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의 아들**은,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징했지만; 그런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은, 자신의 우주 재능을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기 민족의 왕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 나라들”을 봤고, 그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은 이 모든 권능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줬으나,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 세상 나라들은, 우주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그의 관심을 끝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계시하는 것, 천국을 설립하는 일, 인류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뿐이었다.

전쟁, 다툼, 및 살육의 관념은 **예수**께 불쾌한 것이었으며; 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평화의 왕자**로서 세상에 나타나고자 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로마**의 억압에 대항하는 반역에 **유대 열심당**을 인도해 달라는 그들의 청을 거둬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主)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네 상속으로 이방인을 줄 것이며 네 소유로 세상 끝까지 주겠다.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쳐부술 것이며; 그들을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 조각 낼 것이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런 말이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최종적으로, **사람의 아들**의 인간 정신은 이런 모든 **메시아**의 문제점과 모순들을--곧 **히브리** 성서, 부모의 훈육, 카잔(곧 선생)의 가르침, **유대인**의 기대, 인간적 야망의 바람들을-- 깨끗이 쓸어버렸으며; 자신의 행

therefrom. He would abide by the Father's will. He would proclaim to an onlooking universe,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136:9.4 (1522.3) As the days passed, with ever-increasing clearness Jesus perceived what kind of a truth-revealer he was to become. He discerned that God's way was not going to be the easy way. He began to realize that the cup of the remainder of his human experience might possibly be bitter, but he decided to drink it.

136:9.5 (1522.4) Even his human mind is saying goodbye to the throne of David. Step by step this human mind follows in the path of the divine. The human mind still asks questions but unfailingly accepts the divine answers as final rulings in this combined life of living as a man in the world while all the time submitting unqualifiedly to the doing of the Father's eternal and divine will.

136:9.6 (1522.5) Rome was mistress of the Western world. The Son of Man, now in isolation and achieving these momentous decisions, with the hosts of heaven at his command, represented the last chance of the Jews to attain world dominion; but this earthborn Jew, who possessed such tremendous wisdom and power, declined to use his universe endowments either for the aggrandizement of himself or for the enthronement of his people. He saw, as it were, “the kingdoms of this world,” and he possessed the power to take them. The Most Highs of Edentia had resigned all these powers into his hands, but he did not want them. The kingdoms of earth were paltry things to interest the Creator and Ruler of a universe. He had only one objective, the further revelation of God to ma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the rule of the heavenly Father in the hearts of mankind.

136:9.7 (1522.6) The idea of battle, contention, and slaughter was repugnant to Jesus; he would have none of it. He would appear on earth as the Prince of Peace to reveal a God of love. Before his baptism he had again refused the offer of the Zealots to lead them in rebellion against the Roman oppressors. And now he made his final decision regarding those Scriptures which his mother had taught him, such as: “The Lord has said to me,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you. Ask of me, and I will give you the heathen for your inheritance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for your possession. You sha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you shall dash them in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136:9.8 (1522.7) Jesus of Nazareth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uch utterances did not refer to him. At last, and finally, the human mind of the Son of Man made a clean sweep of all these Messianic difficulties and contradictions — Hebrew scriptures, parental training, chazan teaching,

로를 명쾌하게 결정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조용히 천국의 선포를 시작하고, **아버지**(곧 **인격화된 조울사**)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과정의 세부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예수께서는, 영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적 시험을 적용시키기를 거절했을 때, 자연 법칙을 주체님께 무시하기를 거절했을 때, 이런 결정으로, 방대한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가 됐다. 그리고 그가 영적 영광의 서막으로서 세속의 권력을 붙잡기를 거절했을 때, 그는 우주에 충성하고 도덕적으로 고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본보기를 보였다.

사람의 아들이 세례 받은 후 언덕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든지 혹시 품었더라도, 홀로 있으면서 결정한 40일이 지난 후에 동료들에게 돌아온 그에게는, 어떤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나라 설립을 위한 계획표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람의 육체적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로마**에서 최근에 행해진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군중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비록 그런 종류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의 주의를 끄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권위나 속세의 권력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도록 애쓰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천국을, 기대에 찬 **유대인**들의 눈에서 과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거절하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권위와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배척할 것임을 확신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초기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암시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애썼다.

그는 자신의 공적 사역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을 처리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는데: 음식을 제공하라고 소리침, 기적을 행하라고 강요함, 그리고 마침내 추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함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레아** 언덕에서 자신의 격리 기간에 내렸던 결정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았다.

10. 여섯째 결정

홀로 있던, 기억에 남을만한 이 기간의 마지막 날에,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합류하려고 산을 내려가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인격화된 조울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결정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고 기록된 이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문제에서도 나는 **아버지**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에게 서약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한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영적 승리와 도덕적

Jewish expectations, and human ambitious longings; once and for all he decided upon his course. He would return to Galilee and quietly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and trust his Father (the Personalized Adjuster) to work out the details of procedure day by day.

136:9.9 (1523.1) By these decisions Jesus set a worthy example for every person on every world throughout a vast universe when he refused to apply material tests to prove spiritual problems, when he refused presumptuously to defy natural laws. And he set an inspiring example of universe loyalty and moral nobility when he refused to grasp temporal power as the prelude to spiritual glory.

136:9.10 (1523.2) If the Son of Man had any doubts about his mission and its nature when he went up in the hills after his baptism, he had none when he came back to his fellows following the forty days of isolation and decisions.

136:9.11 (1523.3) Jesus has formulated a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He will not cater to the physical gratification of the people. He will not deal out bread to the multitudes as he has so recently seen it being done in Rome. He will not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by wonder-working, even though the Jews are expecting just that sort of a deliverer. Neither will he seek to win acceptance of a spiritual message by a show of political authority or temporal power.

136:9.12 (1523.4) In rejecting these methods of enhancing the coming kingdom in the eyes of the expectant Jews, Jesus made sure that these same Jews would certainly and finally reject all of his claims to authority and divinity. Knowing all this, Jesus long sought to prevent his early followers alluding to him as the Messiah.

136:9.13 (1523.5) Throughout his public ministry he wa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dealing with three constantly recurring situations: the clamor to be fed, the insistence on miracles, and the final request that he allow his followers to make him king. But Jesus never departed from the decisions which he made during these days of his isolation in the Perean hills.

10. THE SIXTH DECISION

136:10.1 (1523.6) On the last day of this memorable isolation, before starting down the mountain to join John and his disciples, the Son of Man made his final decision. And this decision he communicated to the Personalized Adjuster in these words, “And in all other matters, as in these now of decision-record, I pledge you I will be subject to the will of my Father.”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journeyed down the mountain. And his face shone

성취의 영광으로 빛났다.

with the glory of spiritual victory and moral achievement.

제137편. 갈릴리 체류기간

⇨ 136

유랜시아 책

138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37편
갈릴리 체류기간

섹션

소개

1. 처음 네 명의 사도를 택하심
2.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하심
3. 가버나움 방문
4. 가나의 결혼식
5.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6. 안식일에 생긴 일
7. 4개월의 훈련
8. 천국에 관한 설교

PAPER 137
TARRYING TIME I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Choosing the First Four Apostles
2. Choosing Philip and Nathaniel
3. The Visit to Capernaum
4. The Wedding at Cana
5. Back in Capernaum
6. The Events of a Sabbath Day
7. Four Months of Training
8. Sermon on the Kingdom

소개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펠라**에서 야영하던 **요한**의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날 내내 군중과 함께 지냈다. 그는, 떨어져서 다친 한 아이를 도와줬고, 그 소년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위해, 가까이 있는 마을인 **펠라**로 여행했다.

INTRODUCTION

^{137:0.1 (1524.1)} EARLY on Saturday morning, February 23, A.D. 26, Jesus came down from the hills to rejoin John's company encamped at Pella. All that day Jesus mingled with the multitude. He ministered to a lad who had injured himself in a fall and journeyed to the near-by village of Pella to deliver the boy safely into the hands of his parents.

1. 처음 네 명의 사도를 택하심

이 안식일에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두 명이 예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요한**의 추종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께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다친 소년을 데리고 **펠라**로 가는 여행길에 예수와 동행했다. **요한**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하려고 멈췄을 때, **안드레**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온 이래 당신을 계속 관찰해 왔고, 당신이 새로운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며; 당신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했으며; 당신의 문하생으로서 새로운 나라에 관

1. CHOOSING THE FIRST FOUR APOSTLES

^{137:1.1 (1524.2)} During this Sabbath two of John's leading disciples spent much time with Jesus. Of all John's followers one named Andrew was the most profoundly impressed with Jesus; he accompanied him on the trip to Pella with the injured boy. On the way back to John's rendezvous he asked Jesus many questions, and just before reaching their destination, the two paused for a short talk, during which Andrew said: "I have observed you ever since you came to Capernaum, and I believe you are the new Teacher, and though I do not understand all your

한 모든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진심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하게 될 열두 명 가운데 첫 사도로서 안드레를 받아들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업무를 묵묵히 지켜보는 동시에 진지하게 믿은 사람이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가운데 하나인,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시몬은 요한의 최고 지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수와 안드레가 야영지로 돌아온 직후에,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려 줬다. 그는 예수께서도 봉사에 대한 자신의 서약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그도(곧 시몬도) 마찬가지로 예수께 가서, 새 나라의 봉사 단체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시몬이 말했다: “그가 세베대의 작업장에 일하러 오셨을 때부터,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를 버리려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들은 곧 요한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가기로 동의했다. 요한은 자신의 유능한 조연자이고 가장 유망한 두 제자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슬펐으나, 그들의 질문에 용감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내 업무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 후에 안드레는 예수에게 손짓해서 한쪽 옆으로 불러내고, 동생 역시 새 나라의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을 둘째 제자로 환영하면서 말씀했다: “시몬아, 너의 정열은 칭찬할 만 하지만, 천국 일에는 위험하다. 네가 언행에 좀 더 사려 깊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려고 한다.”

펠라에 사는 부상당한 소년의 부모가, 자기 집에서 그날 밤 머물며 쉬어가도록 예수께 간청했고, 예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안드레 및 그의 동생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예수께서 그날 밤을 지내려고 펠라로 돌아간 후에, 안드레와 시몬이 다가올 천국 설립에서 자신이 맡을 봉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를 찾으려고 동산에서 오래도록 헤매다가 헛걸음을 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도착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과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처음 인정받은 임원이 됐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내일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해 주자,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서글퍼했다. 그들은 한동안 예수를 알았고 사랑했다. 그들이 언덕 위에서 여러 날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오자, 다른 사람들이

teaching, I have fully made up my mind to follow you; I would sit at your feet and learn the whole truth about the new kingdom.” And Jesus, with hearty assurance, welcomed Andrew as the first of his apostles, that group of twelve who were to labor with him in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new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7:1.2 (1524.3) Andrew was a silent observer of, and sincere believer in, John's work, and he had a very able and enthusiastic brother, named Simon, who was one of John's foremost disciples. It would not be amiss to say that Simon was one of John's chief supporters.

137:1.3 (1524.4) Soon after Jesus and Andrew returned to the camp, Andrew sought out his brother, Simon, and taking him aside, informed him that he had settled in his own mind that Jesus was the great Teacher, and that he had pledged himself as a disciple. He went on to say that Jesus had accepted his proffer of service and suggested that he (Simon) likewise go to Jesus and offer himself for fellowship in the service of the new kingdom. Said Simon: “Ever since this man came to work in Zebedee's shop, I have believed he was sent by God, but what about John? Are we to forsake him? Is this the right thing to do?” Whereupon they agreed to go at once to consult John. John was saddened by the thought of losing two of his able advisers and most promising disciples, but he bravely answered their inquiries, saying: “This is but the beginning; presently will my work end, and we shall all become his disciples.” Then Andrew beckoned to Jesus to draw aside while he announced that his brother desired to join himself to the service of the new kingdom. And in welcoming Simon as his second apostle, Jesus said: “Simon, your enthusiasm is commendable, but it is dangerous to the work of the kingdom. I admonish you to become more thoughtful in your speech. I would change your name to Peter.”

137:1.4 (1525.1) The parents of the injured lad who lived at Pella had besought Jesus to spend the night with them, to make their house his home, and he had promised. Before leaving Andrew and his brother, Jesus said, “Early on the morrow we go into Galilee.”

137:1.5 (1525.2) After Jesus had returned to Pella for the night, and while Andrew and Simon were yet discussing the nature of their servic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orthcoming kingdom,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arrived upon the scene, having just returned from their long and futile searching in the hills for Jesus. When they heard Simon Peter tell how he and his brother, Andrew, had become the first accepted counselors of the new kingdom, and that they were to leave with their new Master on the morrow for Galilee, both James and John were sad. They had known Jesus for some time, and they loved

먼저 선택받았음을 알게 됐다. 그들은 **예수**의 행방을 묻은 후에, 그를 찾으려고 서둘러 떠났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잠드신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당신과 그토록 오래 살아온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는 동안,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안드레**와 **시몬**을 새 나라의 첫 동역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심정을 진정시키고 스스로 물어봐라, ‘누가 너희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를 찾아 나서라고 하더냐?’” 그를 찾으려고 언덕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그들이 자세히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덧붙여 말했다: “너희는, 새로운 나라의 비밀을, 언덕 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혼 속에서 찾기를 배워야 한다. 너희가 찾던 것은 너희 혼(魂) 속에 이미 현존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 없는-- 진정 내 형제들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 기분을 풀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내일 **갈릴리**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러자 **요한**은, “그러면 **주님**, **야고보**와 나도 **안드레**와 **시몬**처럼 당신의 새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담대하게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 “형제들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천국의 영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내 형제인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요청할 필요가 없으며;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천국 안에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너희가 내게 청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천국 협의회에 너희도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의도이기는 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을 찾아 다님으로써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도 첫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래할 나라에서는, 걱정을 사서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만 항상 관심을 두기 바란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책망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안드레**와 **시몬**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의 고문단(顧問團)으로 뽑힌 사람들을, 나중에 그를 따른 수많은 믿는 제자 무리와 구별하기 위해,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그날 밤 늦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레 요한**과 함께 이야기했고, 굳건한 **유대지방**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수제자(首弟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다가오는 천국의 **갈릴리 왕**자의 사도가 되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양도했다.

him. They had searched for him many days in the hills, and now they returned to learn that others had been preferred before them. They inquired where Jesus had gone and made haste to find him.

137:1.6 (1525.3) Jesus was asleep when they reached his abode, but they awakened him, saying: “How is it that, while we who have so long lived with you are searching in the hills for you, you prefer others before us and choose Andrew and Simon as your first associates in the new kingdom?” Jesus answered them, “Be calm in your hearts and ask yourselves, ‘who directed that you should search for the Son of Man when he was about his Father’s business?’” After they had recited the details of their long search in the hills, Jesus further instructed them: “You should learn to search for the secret of the new kingdom in your hearts and not in the hills. That which you sought was already present in your souls. You are indeed my brethren — you needed not to be received by me — already were you of the kingdom, and you should be of good cheer, making ready also to go with us tomorrow into Galilee.” John then made bold to ask, “But, Master, will James and I be associates with you in the new kingdom, even as Andrew and Simon?” And Jesus, laying a hand on the shoulder of each of them, said: “My brethren, you were already with me in the spirit of the kingdom, even before these others made request to be received. You, my brethren, have no need to make request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you have been with me in the kingdom from the beginning. Before men, others may take precedence over you, but in my heart did I also number you in the councils of the kingdom, even before you thought to make this request of me. And even so might you have been first before men had you not been absent engaged in a well-intentioned but self-appointed task of seeking for one who was not lost. In the coming kingdom, be not mindful of those things which foster your anxiety but rather at all times concern yourselves only with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who is in heaven.”

137:1.7 (1525.4) James and John received the rebuke in good grace; never more were they envious of Andrew and Simon. And they made ready, with their two associate apostles, to depart for Galilee the next morning. From this day on the term apostle was employed to distinguish the chosen family of Jesus’ advisers from the vast multitude of believing disciples who subsequently followed him.

137:1.8 (1525.5) Late that evening, James, John, Andrew, and Simon held converse with John the Baptist, and with tearful eye but steady voice the stalwart Judean prophet surrendered two of his leading disciples to become the apostles of the Galilean Prince of the coming kingdom.

2.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하심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펠라 근처 강가에서 헤어졌고, 육신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예수와 네 명의 제자 사도가 갈릴리로 떠나던 그날,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야영지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전날, 요한은 안드레와 에스라에게 예수가 구원주라고 확실하게 선포했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에스라는 부드러운 성품의 나사렛 목수를 거부했는데, 그는 동역자들에게, “다니엘 선지자는 사람의 아들이 권세와 큰 영광의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갈릴리의 목수이자 가버나움의 조선공인 이 사람은 구원주가 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가 요한의 친척이고 마음이 친절하므로 우리 선생님이 속은 것이다. 이 가짜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요한이 꾸짖자, 그는 여러 제자를 이끌고 곧 남쪽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 무리는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주기를 계속했고, 결국 요한을 믿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기는 거부하는 하나의 교파를 세웠다. 오늘날까지도 이 무리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다.

요한의 추종자 사이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와 네 제자 사도는 갈릴리를 향해 평안히 길을 갔다. 나인을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 앞쪽을 바라보던 예수의 눈에, 벳새다의 빌립이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로 오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께서는 빌립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네 명의 이 새로운 사도 역시 그를 잘 알았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나다나엘)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을 방문하러 펠라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를 만나자 매우 기뻐했다. 빌립은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에 살던 나다니엘은 예수를 몰랐다. 빌립은 친구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왔고, 나다니엘은 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다.

베드로는 빌립을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과 안드레, 야고보, 및 요한이 모두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의 동역자가 됐다고 말했으며, 빌립에게도 자신해서 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빌립은 난처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요단강 근처 노상(路上)에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결정해야 했다. 이때 그는 베드로, 안드레, 및 요한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의 대체적 일정을 야고보에게 설명했다. 마침내 안드

2. CHOOSING PHILIP AND NATHANIEL

137:2.1 (1526.1) Sunday morning, February 24, A.D. 26, Jesus took leave of John the Baptist by the river near Pella, never again to see him in the flesh.

137:2.2 (1526.2) That day, as Jesus and his four disciple-apostles departed for Galilee, there was a great tumult in the camp of John's followers. The first great division was about to take place. The day before, John had made his positive pronouncement to Andrew and Ezra that Jesus was the Deliverer. Andrew decided to follow Jesus, but Ezra rejected the mild-mannered carpenter of Nazareth, proclaiming to his associates: "The Prophet Daniel declares that the Son of Man will come with the clouds of heaven, in power and great glory. This Galilean carpenter, this Capernaum boatbuilder, cannot be the Deliverer. Can such a gift of God come out of Nazareth? This Jesus is a relative of John, and through much kindness of heart has our teacher been deceived. Let us remain aloof from this false Messiah." When John rebuked Ezra for these utterances, he drew away with many disciples and hastened south. And this group continued to baptize in John's name and eventually founded a sect of those who believed in John but refused to accept Jesus. A remnant of this group persists in Mesopotamia even to this day.

137:2.3 (1526.3) While this trouble was brewing among John's followers, Jesus and his four disciple-apostles were well on their way toward Galilee. Before they crossed the Jordan, to go by way of Nain to Nazareth, Jesus, looking ahead and up the road, saw one Philip of Bethsaida with a friend coming toward them. Jesus had known Philip aforetime, and he was also well known to all four of the new apostles. He was on his way with his friend Nathaniel to visit John at Pella to learn more about the reported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e was delighted to greet Jesus. Philip had been an admirer of Jesus ever since he first came to Capernaum. But Nathaniel, who lived at Cana of Galilee, did not know Jesus. Philip went forward to greet his friends while Nathaniel rested under the shade of a tree by the roadside.

137:2.4 (1526.4) Peter took Philip to one side and proceeded to explain that they, referring to himself, Andrew, James, and John, had all become associates of Jesus in the new kingdom and strongly urged Philip to volunteer for service. Philip was in a quandary. What should he do? Here, without a moment's warning — on the roadside near the Jordan — there had come up for immediate decision the most momentous question of a lifetime. By this time he was in earnest converse with Peter, Andrew, and John while Jesus was outlining to James the trip through

레가 빌립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빌립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메시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일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며; 곧바로 그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요한에게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빌립은 구원주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감격했다.

빌립은 일행에게 그 자리에 남아있어 달라고 손짓으로 표시하면서,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돌아갔는데, 그는 아직 뽕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 도래할 나라, 그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해 들어왔던 많은 것을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빌립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면서,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요한이 선포했던 구원주를 발견했다”고 외쳤다. 나다니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시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최근에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나사렛 예수시라”고 대답했다. 나다니엘은 다소 충격을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의 팔을 끌면서, “가서 만나보자”고 말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께 데려갔고, 그는 진지하게 의심하는 자의 얼굴을 인자하게 들여다보면서 말씀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다니엘은 빌립을 돌아보면서, “네 말이 맞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주인이시다. 나도, 자격이 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 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이제 예수께서는 장차 긴밀하게 지낼 동역자 단체의 절반을 모으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다섯은 다소 친분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는 낯선 사람인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고, 나인 마을을 지나서,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소년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요셉과 함께 그날 밤을 지냈다. 예수의 동역자들은, 새로 만나게 된 선생님이, 집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른 금언과 경구 형태로 씌어진 자신의 필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데 왜 그리도 신경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들이 그 후로 그가 --흙이나 모래 위를 제외하고-- 아무 데도 글씨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줬다.

Galilee and on to Capernaum. Finally, Andrew suggested to Philip, “Why not ask the Teacher?”

137:2.5 (1526.5) It suddenly dawned on Philip that Jesus was a really great man, possibly the Messiah, and he decided to abide by Jesus' decision in this matter; and he went straight to him, asking, “Teacher, shall I go down to John or shall I join my friends who follow you?” And Jesus answered, “Follow me.” Philip was thrilled with the assurance that he had found the Deliverer.

137:2.6 (1526.6) Philip now motioned to the group to remain where they were while he hurried back to break the news of his decision to his friend Nathaniel, who still tarried behind under the mulberry tree,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many things which he had heard concerning John the Baptist, the coming kingdom, and the expected Messiah. Philip broke in upon these meditations, exclaiming, “I have found the Deliverer, him of whom Moses and the prophets wrote and whom John has proclaimed.” Nathaniel, looking up, inquired, “Whence comes this teacher?” And Philip replied, “He is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the carpenter, more recently residing at Capernaum.” And then, somewhat shocked, Nathaniel asked, “Can any such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But Philip, taking him by the arm, said, “Come and see.”

137:2.7 (1527.1) Philip led Nathaniel to Jesus, who, looking benignly into the face of the sincere doubter, said: “Behold a genuin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 deceit. Follow me.” And Nathaniel, turning to Philip, said: “You are right. He is indeed a master of men. I will also follow, if I am worthy.” And Jesus nodded to Nathaniel, again saying, “Follow me.”

137:2.8 (1527.2) Jesus had now assembled one half of his future corps of intimate associates, five who had for some time known him and one stranger, Nathaniel. Without further delay they crossed the Jordan and, going by the village of Nain, reached Nazareth late that evening.

137:2.9 (1527.3) They all remained overnight with Joseph in Jesus' boyhood home. The associates of Jesus little understood why their new-found teacher was so concerned with completely destroying every vestige of his writing which remained about the home in the form of the ten commandments and other mottoes and sayings. But this proceeding,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y never saw him subsequently write — except upon the dust or in the sand — made a deep impression upon their minds.

3. 가버나움 방문

3. THE VISIT TO CAPERNAUM

가나에서 명성 있는 집안의 처녀의 결혼식에 그들 모두가 초대받았으므로, **예수**께서는 다음날 사도들을 그 마을로 보냈고, 그동안 자신은 급히 **가버나움**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동생 **유다**를 만나기 위해 **막달라**에 들렀다.

나사렛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 동역자들은 **예수**의 가족 중에서 **요셉**과 다른 식구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수**야말로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구원자라는 믿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다. **예수**의 가족은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고, **요셉**이 말했다: “아마, 결국 어머니가 옳았는지도 모른다--이상한 우리 형님이, 도래할 왕일지도 모른다.”

유다는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함께 있었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이 세상 사명을 굳건히 믿는 신자가 됐다.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형이 맡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 무척 혼란에 빠져 있었더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가 **메시아**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일찍이 기대하고 있던 희망을 되살려 냈고, 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도록 아들들을 부추겼다.

예수께서는 월요일 밤 **가버나움**에 도착했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가버나움**에 있던 모든 친구는, 호감이 가는 큰 변화가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됐다. 그는 다시 한 번 상당히 활기차 보였고, 초기 **나사렛** 시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세례 받기 전 몇 년 동안과 격리된 기간 전후 시기 동안에, 그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말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들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무언가 위엄 있는 기품과 고귀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명랑했고 즐거워했다.

마리아는 기대에 부풀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졌다고 예상했다. 아들이 곧 **유대인**의 초자연적 왕으로서 기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팔레스틴**이 깜짝 놀라 정신을 잃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야고보**, **유다**, 및 **세베대**가 퍼붓는 모든 질문에, **예수**께서는 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당분간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해야 한다.”

이튿날 화요일, 그들은 모두, 그다음 날로 예정됐던 **나오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나**를 향해 여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자기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예수**의 거듭된 당부에도, 그들은 **구원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널리 퍼뜨렸다. 그들 각자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권능을 장악하기를, 다가오는 **가나** 결혼식에서 개시{開始}할 것이고, 대단한 권위와 숭고한 위엄{威嚴}으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기대했다. 그들은 **예수**의 세례 후에

137:3.1 (1527.4) The next day Jesus sent his apostles on to Cana, since all of them were invited to the wedding of a prominent young woman of that town, while he prepared to pay a hurried visit to his mother at Capernaum, stopping at Magdala to see his brother Jude.

137:3.2 (1527.5) Before leaving Nazareth, the new associates of Jesus told Joseph and other members of Jesus' family about the wonderful events of the then recent past and gave free expression to their belief that Jesus was the long-expected deliverer. And these members of Jesus' family talked all this over, and Joseph said: "Maybe, after all, Mother was right — maybe our strange brother is the coming king."

137:3.3 (1527.6) Jude was present at Jesus' baptism and, with his brother James, had become a firm believer in Jesus' mission on earth. Although both James and Jude were much perplexed as to the nature of their brother's mission, their mother had resurrected all her early hopes of Jesus a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and she encouraged her sons to have faith in their brother as the deliverer of Israel.

137:3.4 (1527.7) Jesus arrived in Capernaum Monday night, but he did not go to his own home, where lived James and his mother; he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Zebedee. All his friends at Capernaum saw a great and pleasant change in him. Once more he seemed to be comparatively cheerful and more like himself as he was during the earlier years at Nazareth. For years previous to his baptism and the isolation periods just before and just after, he had grown increasingly serious and self-contained. Now he seemed quite like his old self to all of them. There was about him something of majestic import and exalted aspect, but he was once again lighthearted and joyful.

137:3.5 (1528.1) Mary was thrilled with expectation. She anticipated that the promise of Gabriel was nearing fulfillment. She expected all Palestine soon to be startled and stunned by the miraculous revelation of her son as the supernatural king of the Jews. But to all of the many questions which his mother, James, Jude, and Zebedee asked, Jesus only smilingly replied: "It is better that I tarry here for a while; I must do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137:3.6 (1527.9) On the next day, Tuesday, they all journeyed over to Cana for the wedding of Naomi, which was to take place on the following day. And in spite of Jesus' repeated warnings that they tell no man about him "until the Father's hour shall come," they insisted on quietly spreading the news abroad that they had found the Deliverer. They each confidently expected that Jesus would inaugurate his assumption of Messianic authority at the forthcoming wedding at Cana, and that he would do so with great power and sublime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이미 들었던 것을 기억했고, 이 세상에서 다가올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표적과 기적적인 증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온 마을 사람이 **나단**의 아들 **요함**과 **나오미**의 결혼식 축제에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마리아**가 이토록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마치 아들의 대관식(戴冠式)에 가는 대비마마 같은 기분으로 **가나**를 향해 여행했다.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열세 살 되던 해 이후로, 그토록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동역자들의 바램이나 희망에 대해 그토록 사려 깊고 이해심 있으며, 그토록 감동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작은 무리로 나뉘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지에 대해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4. 가나의 결혼식

수요일 정오까지,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숫자보다 네 배가 넘는, 거의 천 명의 손님이 **가나**에 도착했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수요일에 거행됐고, 초청장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전에 전달됐다. 오전부터 오후 이른 시간까지, 이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수**를 위한 공개 환영식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은, 거의 유명인사가 된 **이 갈릴리**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기 원했는데, **예수**께서는 젊은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리고 결혼 예비의식을 인도하기로 **예수**께서 동의하자 모두 기뻐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인간적 실존, 신(神)으로서 선재(先在)했던 것, 그리고 인간적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혼합되거나 융합된 상태를 전적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평정심과 함께, 순간적으로 인간 역할을 하거나, 또는 즉각 신성한 본성의 인격적 특권을 취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됐으며; 특히 자기 가족과 여섯 제자_사도는, 그가 어떤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적절히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 일찍, **마리아**는 **아고보**를 불러내서, 결혼 예식과 관련하여 어떤 시간과 어떤 시점에 “초자연적 존재”로서 자신을 현시하려고 계획했는지,

grandeur. They remembered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e phenomena attendant upon his baptism, and they believed that his future course on earth would be marked by increasing manifestations of supernatural wonders and miraculous demonstrations. Accordingly, the entire countryside was preparing to gather together at Cana for the wedding feast of Naomi and Johab the son of Nathan.

137:3.7 (1527.10) Mary had not been so joyous in years. She journeyed to Cana in the spirit of the queen mother on the way to witness the coronation of her son. Not since he was thirteen years old had Jesus' family and friends seen him so carefree and happy, so thoughtful and understanding of the wishes and desires of his associates, so touchingly sympathetic. And so they all whispered among themselves, in small groups, wondering what was going to happen. What would this strange person do next? How would he usher in the glory of the coming kingdom? And they were all thrilled with the thought that they were to be present to see the revelation of the might and power of Israel's God.

4. THE WEDDING AT CANA

137:4.1 (1528.4) By noon on Wednesday almost a thousand guests had arrived in Cana, more than four times the number bidden to the wedding feast. It was a Jewish custom to celebrate weddings on Wednesday, and the invitations had been sent abroad for the wedding one month previously. In the forenoon and early afternoon it appeared more like a public reception for Jesus than a wedding. Everybody wanted to greet this near-famous Galilean, and he was most cordial to all, young and old, Jew and gentile. And everybody rejoiced when Jesus consented to lead the preliminary wedding procession.

137:4.2 (1528.5) Jesus was now thoroughly self-conscious regarding his human existence, his divine pre-existence, and the status of his combined, or fused, human and divine natures. With perfect poise he could at one moment enact the human role or immediately assume the personality prerogatives of the divine nature.

137:4.3 (1528.6) As the day wore on, Jesus became increasingly conscious that the people were expecting him to perform some wonder; more especially he recognized that his family and his six disciple-apostles were looking for him appropriately to announce his forthcoming kingdom by some startling and supernatural manifestation.

137:4.4 (1529.1) Early in the afternoon Mary summoned James, and together they made bold to approach Jesus to inquire if he would admit

자기들을 믿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함께 **예수**께 담대히 다가갔다. 이것을 **예수**께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특유한 분노를 유발시켰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씀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내 옆에 머물러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에는 꾸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인간 **예수**께 크게 실망스러웠고, 그는 신성을 외부로 나타내라고 권유하는 어머니의 제안에 자신이 반응한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그가 최근에 언덕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다. **마리아**는 몇 시간 동안 몹시 우울했다. **마리아**가 **야고보**에게 말했다: “난 그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이상한 행동은 언제나 끝날까?” **야고보**와 **유다**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동안, **예수**께서는 한 시간 동안 홀로 떠나 있었다.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쾌활하고 즐거워 보였다.

결혼식은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진행됐으나, 이 귀빈에게서 어떤 행동이나 한마디 말도 없이, 전체 예식이 끝났다. 그러자, **요한**이 “**구원주**”라고 공표했던 이 목수이자 조선훈공이, 어쩌면 저녁 축제인 결혼 만찬에서 권능을 보여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여섯 제자 사도는, 저녁 식사 바로 전에, 그런 증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버려야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호기심 있는 자들을 만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려 내가 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동역자들과 회의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결혼 만찬과 축제 속에서 훌륭한 교제의 밤을 즐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한 대로 보여주는 일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명한 **갈릴리인**을 손님 가운데 모시는 영광으로 기뻐기는 했지만, 결혼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황스런 소식을 하인들로부터 들었다. 그 무렵에 공식 만찬은 끝났고, 손님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즈음, 신랑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내가 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분노를 일으킨 지 몇 시

them to his confidence to the extent of informing them at what hour and at what point in connection with the wedding ceremonies he had planned to manifest himself as the “supernatural one.” No sooner had they spoken of these matters to Jesus than they saw they had aroused his characteristic indignation. He said only: “If you love me, then be willing to tarry with me while I wait upon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But the eloquence of his rebuke lay in the expression of his face.

137:4.5 (1529.2) This move of his mother was a great disappointment to the human Jesus, and he was much sobered by his reaction to her suggestive proposal that he permit himself to indulge in some outward demonstration of his divinity. That was one of the very things he had decided not to do when so recently isolated in the hills. For several hours Mary was much depressed. She said to James: “I cannot understand him; what can it all mean? Is there no end to his strange conduct?” James and Jude tried to comfort their mother, while Jesus withdrew for an hour’s solitude. But he returned to the gathering and was once more lighthearted and joyous.

137:4.6 (1529.3) The wedding proceeded with a hush of expectancy, but the entire ceremony was finished and not a move, not a word, from the honored guest. Then it was whispered about that the carpenter and boatbuilder, announced by John as “the Deliverer,” would show his hand during the evening festivities, perhaps at the wedding supper. But all expectance of such a demonstration was effectually removed from the minds of his six disciple-apostles when he called them together just before the wedding supper and, in great earnestness, said: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this place to work some wonder for the gratification of the curious or for the conviction of those who doubt. Rather are we here to wait upon the will of our Father who is in heaven.” But when Mary and the others saw him in consultation with his associates, they were fully persuaded in their own minds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as about to happen. And they all sat down to enjoy the wedding supper and the evening of festive good fellowship.

137:4.7 (1529.4) The father of the bridegroom had provided plenty of wine for all the guests bidden to the marriage feast, but how was he to know that the marriage of his son was to become an event 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xpected manifestation of Jesus as the Messianic deliverer? He was delighted to have the honor of numbering the celebrated Galilean among his guests, but before the wedding supper was over, the servants brought him the disconcerting news that the wine was running short. By the time the formal supper had ended and the guests were strolling about in the garden, the mother of the bridegroom confided to Mary that the supply of wine was exhausted.

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주께님께 나섰다.

여러 해 동안 **나사렛** 가정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리아**는 늘 **예수**께 도움을 청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를 생각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 야심찬 어머니가 이 경우에 큰아들께 부탁한 데는 다른 동기도 있었다. **예수**께서 정원 한 쪽에 혼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선한 여인이여,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네 때가 왔다고 믿으니;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나는 이런 식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다시 단언합니다. 왜 이런 일로 또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아들아, 네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으니;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없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했다: “여인이여,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좌절했으며; 어리벙벙했다! 어머니는 **예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서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의 인간 심정은, 자기를 낳아준 여자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앞으로 굽혀 그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씀했다: “자, **어머니 마리아**여, 매정한 듯한 내 말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탁하신 일이 **아버지** 뜻의 한 부분이라면 아주 기꺼이 하겠지만, --”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잠시 멈췄고, 망설였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에,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면서, “내 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이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음을--아니 너무 깊이 원했음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기뻐하면서 춤을 쳤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랐으나, 그의 권위를 주장하도록,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메시아**로서 권능을 보여주도록, 자기가 마침내 말아들을 설득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우주 세력들과 인격체들의 현존 및 연합으로 인해,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도록 돼있었다. **마리아**가 원했고,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동정심으로 바랐던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각각 20갤론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가까운 곳에 물로 채워져 있었다.

And Mary confidently said: “Have no worry — I will speak to my son. He will help us.” And thus did she presume to speak, notwithstanding the rebuke of but a few hours before.

137:4.8 (1529.5) Throughout a period of many years, Mary had always turned to Jesus for help in every crisis of their home life at Nazareth so that it was only natural for her to think of him at this time. But this ambitious mother had still other motives for appealing to her eldest son on this occasion. As Jesus was standing alone in a corner of the garden, his mother approached him, saying, “My son, they have no wine.” And Jesus answered, “My good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at?” Said Mary, “But I believe your hour has come; cannot you help us?” Jesus replied: “Again I declare that I have not come to do things in this wise. Why do you trouble me again with these matters?” And then, breaking down in tears, Mary entreated him, “But, my son, I promised them that you would help us; won’t you please do something for me?” And then spoke Jesus: “Woman, what have you to do with making such promises? See that you do it not again. We must in all things wait upon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7:4.9 (1530.1)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crushed; she was stunned! As she stood there before him motionless, with the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the human heart of Jesus was overcome with compassion for the woman who had borne him in the flesh; and bending forward, he laid his hand tenderly upon her head, saying: “Now, now, Mother Mary, grieve not over my apparently hard sayings, for have I not many times told you that I have come only to do the will of my heavenly Father? Most gladly would I do what you ask of me if it were a part of the Father’s will — “ and Jesus stopped short, he hesitated. Mary seemed to sense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Leaping up, she threw her arms around Jesus’ neck, kissed him, and rushed off to the servants’ quarters, saying, “Whatever my son says, that do.” But Jesus said nothing. He now realized that he had already said — or rather desirefully thought — too much.

137:4.10 (1530.2) Mary was dancing with glee. She did not know how the wine would be produced, but she confidently believed that she had finally persuaded her first-born son to assert his authority, to dare to step forth and claim his position and exhibit his Messianic power. And, because of the presence and association of certain universe powers and personalities, of which all those present were wholly ignorant, she was not to be disappointed. The wine Mary desired and which Jesus, the God-man, humanly and sympathetically wished for, was forthcoming.

137:4.11 (1530.3) Near at hand stood six waterpots of stone, filled with water, holding about twenty

이 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연 마지막 정결 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바쁘게 내리는 지시를 받아, 하인들이 큰 돌 항아리들 주위에서 법석을 떠는 것이 **예수**의 주의를 끌었고, 그곳으로 간 그는 그들이 항아리에서 주전자로 포도주를 퍼 가는 것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께서 차츰 깨닫게 됐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행치 않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인격화된 사고 조율사**가 언덕에서 경고했던 말씀을 그때 기억해 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자 특권을 어떤 세력이나 인격체도 그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해, **조율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경고했었는지 회고했다. 이번 경우는, 동력 변형자, 중도자, 및 다른 모든 필요한 인격체들이, 물과 기타 필요한 요소들 주위에 집합해 있었기에,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가 표현한 소망 앞에서, 포도주의 즉각적인 출현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들**의 소망을 이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격화된 조율사**가 표명했기 때문에 갑절로 확실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이 아니었다. 어떤 자연법칙도, 변경, 파괴, 또는 초월되지 않았다. 포도주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 요소들을 절묘하게 조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 제거 외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나**에서 이 경우에, 시간과 무관하게, 그리고 필요한 화학 성분들을 공간에서 조립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초인적 매개체들이 개입해 이 일을 했다는 점 **외**에는, **창조주**의 매개체들이 평상시 자연 과정에 따라서 하는 그대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더욱이, 소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 공연은, **낙원 아버지** 뜻에 위배되지 않았음이 명백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께서 이미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떠서 신랑 들러리, 즉 “연회의 사회자”에게 가져다 줬을 때, 그가 그것을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서 말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질 낮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인데; 당신은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군요.”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던 기적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지만, **예수**께서는 정원의 외진 오두막으로 물러나 잠시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사건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직접 통제

gallons apiece. This water was intended for subsequent use in the final purification ceremonies of the wedding celebration. The commotion of the servants about these huge stone vessels, under the busy direction of his mother, attracted Jesus' attention, and going over, he observed that they were drawing wine out of them by the pitcherful.

137:4.12 (1530.4) It was gradually dawning upon Jesus what had happened. Of all persons present at the marriage feast of Cana, Jesus was the most surprised. Others had expected him to work a wonder, but that was just what he had purposed not to do. And then the Son of Man recalled the admonition of his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 in the hills. He recounted how the Adjuster had warned him about the inability of any power or personality to deprive him of the creator prerogative of independence of time. On this occasion power transformers, midwayers, and all other required personalities were assembled near the water and other necessary elements, and in the face of the expressed wish of the Universe Creator Sovereign, there was no escaping the instantaneous appearance of *wine*. And this occurrence was made doubly certain since the Personalized Adjuster had signified that the execution of the Son's desire was in no way a contravention of the Father's will.

137:4.13 (1530.5) But this was in no sense a miracle. No law of nature was modified, abrogated, or even transcended. Nothing happened but the abrogation of *time* in association with the celestial assembly of the chemical elements requisite for the elaboration of the wine. At Cana on this occasion the agents of the Creator made wine just as they do by the ordinary natural processes *except* that they did it independently of time and with the intervention of superhuman agencies in the matter of the space assembly of the necessary chemical ingredients.

137:4.14 (1531.1) Furthermore it was evident that the enactment of this so-called miracle was not contrary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else it would not have transpired, since Jesus had already subjected himself in all things to the Father's will.

137:4.15 (1531.2) When the servants drew this new wine and carried it to the best man, the “ruler of the feast,” and when he had tasted it, he called to the bridegroom, saying: “It is the custom to set out firs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o bring forth the inferior fruit of the vine; but you have kept the best of the wine until the last of the feast.”

137:4.16 (1531.3) Mary and the disciples of Jesus were greatly rejoiced at the supposed miracle which they thought Jesus had intentionally performed, but Jesus withdrew to a sheltered nook of the garden and engaged in serious thought for a few

를 넘어섰다고, 그리고 **아버지** 뜻에 위반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외심으로 그를 대했으며; 그들은 모두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척 당황했는데, 그들이 단지 무심코 목격하게 된 색다른 사건으로 인해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 잠시 다시 물러나서 혼자 지붕위로 올라갔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만한,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납득했다. 그럼에도 **사람의 아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필사자 생애를 마침내 떠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

5.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결혼 축제가 있던 그 주간 내내 다수의 손님이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새로 뽑은 제자 사도들--곧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가나**에 있던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으므로 매우 슬퍼했고, **예수**의 막내 남동생 **유다**가 그를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곧장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이 여행 도중에 **예수**께서는 새로 뽑은 동역자들에게, 도래할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많이 이야기했고, 특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으로 일 할 때, **세포리**와 **디베라**라는 도시를 피하라고 충고했다.

그날 밤 저녁식사 후, 이 **세베대**와 **살로메** 집에서, **예수**의 이 세상 생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 가운데 하나가 열렸다. 여섯 사도만 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유다**는 그들이 막 헤어지려고 할 때 도착했다. 선택된 이 여섯 명은, **예수**와 함께 **가나**에서 **벳새다**까지 여행했는데, 마치 공중을 나는 듯이 걸어갔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활기 넘쳤고, **사람의 아들**의 측근 동료로 선택됐다는 생각으로 설렘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이며, 이 세상 사명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가능성 있는지 그들에게 명백히 설명하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으며; **베드로**까지도 표현 못할 정도로 무너졌다. 사려 깊은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의 말씀에 용감하게 대꾸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또한 그들 안에 **유대적 메시아** 사상이 그토록 완전히 굳어져 있음을 봤을 때, 그들을 쉬도록 내보내는 한편, 동생 **유다**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유다**는 **예수**께 작별을 고하기 전에, 흥분하면서 말했다: “가장이신_형님, 나는 당신을 이해

brief moments. He finally decided that the episode was beyond his personal control under the circumstances and, not being adverse to his Father's will, was inevitable. When he returned to the people, they regarded him with awe; they all believed in him as the Messiah. But Jesus was sorely perplexed, knowing that they believed in him only because of the unusual occurrence which they had just inadvertently beheld. Again Jesus retired for a season to the housetop that he might think it all over.

137:4.17 (1531.4) Jesus now fully comprehended that he must constantly be on guard lest his indulgence of sympathy and pity become responsible for repeated episodes of this sort. Nevertheless, many similar events occurred before the Son of Man took final leave of his mortal life in the flesh.

5. BACK IN CAPERNAUM

137:5.1 (1531.5) Though many of the guests remained for the full week of wedding festivities, Jesus, with his newly chosen disciple-apostles — James, John, Andrew, Peter, Philip, and Nathaniel — departed very early the next morning for Capernaum, going away without taking leave of anyone. Jesus' family and all his friends in Cana were much distressed because he so suddenly left them, and Jude, Jesus' youngest brother, set out in search of him. Jesus and his apostles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Zebedee at Bethsaida. On this journey Jesus talked over many things of importance to the coming kingdom with his newly chosen associates and especially warned them to make no mention of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He also advised them to avoid the cities of Sepphoris and Tiberias in their future work.

137:5.2 (1531.6) After supper that evening, in this home of Zebedee and Salome, there was hel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ferences of all Jesus' earthly career. Only the six apostles were present at this meeting; Jude arrived as they were about to separate. These six chosen men had journeyed from Cana to Bethsaida with Jesus, walking, as it were, on air. They were alive with expectancy and thrilled with the thought of having been selected as close associates of the Son of Man. But when Jesus set out to make clear to them who he was and what was to be his mission on earth and how it might possibly end, they were stunned. They could not grasp what he was telling them. They were speechless; even Peter was crushed beyond expression. Only the deep-thinking Andrew dared to make reply to Jesus' words of counsel. When Jesus perceived that they did not comprehend his message, when he saw that their ideas of the Jewish Messiah were so completely crystallized, he sent them to their rest while he walked and talked with his brother Jude. And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이 당신인지에 대해, 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고, 다가를 천국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은 압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막달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밤 외투를 두르고 호숫가에 앉아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날 밤 긴 명상을 통해, 추종자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닌 어떤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확실히 납득하게 됐다. 마침내 그는, **요한**이 예견했고 **유대인**이 찾고 있던 자로서가 아니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아무튼, 그는 **다윗** 유형의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마음이 비교적 더 영적으로 기울었던 옛 선견자들의 예언이 참으로 실현된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았다. 이 복잡한 상황의 최종 해결을, **아버지** 뜻이 풀려나가는 대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지만, 그들은 기쁨이 사라진 무리였다. 그는 그들과 대화했고, 식사 후 자기 주위에 모아 놓고 말씀했다: “여기서 얼마동안 체류하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이다. 너희는,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전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구자가 자기 일을 마치면, 우리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도 **세베대**와 배목공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며, 다음 날 자신이 설교하기로 돼있는 회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안식일** 오후에 그들과 회합을 갖도록 지시했다.

6. 안식일에 생긴 일

세례 받은 후 **예수**의 첫 번째 공개적 출현은, **안식일**인 서기 26년 3월 2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넘칠 정도로 모였다. **요단강** 세례 이야기 외에, 이제는 물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가나**로부터 더해졌다. **예수**께서는 여섯 명의 사도를 귀빈석에 앉게 하고,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앉혔다. 전날 밤 **가버나움**에서 **야고보**와 함께 돌아와 있던 어머니 역시 거기에 왔는데, 회당에서 여자들의 처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청중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그날 설교하기로 돼있는 그의 본성

before Jude took leave of Jesus, he said with much feeling: “My father-brother, I never have understood you. I do not know of a certainty whether you are what my mother has taught us, and I do not fully comprehend the coming kingdom, but I do know you are a mighty man of God. I heard the voice at the Jordan, and I am a believer in you, no matter who you are.” And when he had spoken, he departed, going to his own home at Magdala.

137:5.3 (1532.1) That night Jesus did not sleep. Donning his evening wraps, he sat out on the lake shore thinking, thinking until the dawn of the next day. In the long hours of that night of meditation Jesus came clearly to comprehend that he never would be able to make his followers see him in any other light than as the long-expected Messiah. At last he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way to launch his message of the kingdom except as the fulfillment of John's prediction and as the one for whom the Jews were looking. After all, though he was not the Davidic type of Messiah, he was truly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utterances of the more spiritually minded of the olden seers. Never again did he wholly deny that he was the Messiah. He decided to leave the final untangling of this complicated situation to the outworking of the Father's will.

137:5.4 (1532.2) The next morning Jesus joined his friends at breakfast, but they were a cheerless group. He visited with them and at the end of the meal gathered them about him, saying: “It is my Father's will that we tarry hereabouts for a season. You have heard John say that he came to prepare the way for the kingdom; therefore it behooves us to await the completion of John's preaching. When the forerunner of the Son of Man shall have finished his work, we will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tidings of the kingdom.” He directed his apostles to return to their nets while he made ready to go with Zebedee to the boatshop, promising to see them the next day at the synagogue, where he was to speak, and appointing a conference with them that Sabbath afternoon.

6. THE EVENTS OF A SABBATH DAY

137:6.1 (1532.3) Jesus' first public appearance following his baptism was in the Capernaum synagogue on Sabbath, March 2, A.D. 26. The synagogue was crowded to overflowing. The story of the baptism in the Jordan was now augmented by the fresh news from Cana about the water and the wine. Jesus gave seats of honor to his six apostles, and seated with them were his brothers in the flesh James and Jude. His mother, having returned to Capernaum with James the evening before, was also present, being seated in the

과 권위에 어울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게 돼있었다.

예수께서 일어서자, 회당 관리가 두루마리 **성서**를 그에게 전했고, 그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은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가난하고 회개하는 영을 가진 자와, 내 말을 인해 떠는 자에게도, 내가 관심을 둘 것이다.’ 두려워하고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나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모든 다른 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성읍에서 나오는 소리,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말한다: ‘여자는 진통하기 전에 출산하며;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일을 누가 들었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한 나라가 갑자기 생기겠는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위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읽기를 마치자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자에게 돌려줬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간단히 말씀했다: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행하기를 배우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야고보** 및 **유다**와 함께, 배를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갔고, 도래할 나라에 대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거기에 닿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목요일 밤보다는 더 많이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도래하는 그 시간”까지는 각자 일상 임무에 전념하라고 그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배목 공소로 돌아감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일을 위한 공부와 준비에 매일 밤 세 시간씩 보내야 한다고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 “너희를 부르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각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나라는 소란스러움과 찬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 그리고 천국

women's section of the synagogue. The entire audience was on edge; they expected to behold some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supernatural power which would be a fitting testimony to the nature and authority of him who was that day to speak to them. But they were destined to disappointment.

137:6.2 (1532.4) When Jesus stood up, the ruler of the synagogue handed him the Scripture roll, and he read from the Prophet Isaiah: “Thus says the Lord: ‘The heaven is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Where is the house that you built for me? And where is the place of my dwelling? All these things have my hands made,’ says the Lord. ‘But to this man will I look, even to him who is poor and of a contrite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who tremble and fear: ‘Your brethren hated you and cast you out for my name’s sake.’ But let the Lord be glorified. He shall appear to you in joy, and all others shall be ashamed. A voice from the city, a voice from the temple, a voice from the Lord says: ‘Before she travailed, she brought forth; before her pain came, she was delivered of a man child.’ Who has heard such a thing? Shall the earth be made to bring forth in one day? Or can a nation be born at once? But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extend peace like a river, and the glory of even the gentiles shall be like a flowing stream.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s, so will I comfort you. And you shall be comforted even in Jerusalem. And when you see these things, your heart shall rejoice.’”

137:6.3 (1533.1) When he had finished this reading, Jesus handed the roll back to its keeper. Before sitting down, he simply said: “Be patient and you shall see the glory of God; even so shall it be with all those who tarry with me and thus learn to do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And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wondering what was the meaning of all this.

137:6.4 (1533.2) That afternoon Jesus and his apostles, with James and Jude, entered a boat and pulled down the shore a little way, where they anchored while he talked to them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they understood more than they had on Thursday night.

137:6.5 (1533.3) Jesus instructed them to take up their regular duties until “the hour of the kingdom comes.” And to encourage them, he set an example by going back regularly to work in the boatshop. In explaining that they should spend three hours every evening in study and preparation for their future work, Jesus further said: “We will all remain hereabout until the Father bids me call you. Each of you must now return to his accustomed work just as if nothing had happened. Tell no man about me and remember that my kingdom is not to come with noise and glamor, but rather must it

협의회에 너희와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내 친구이며; 나는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는 곧 내 개인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인내하고, 온순하라. **아버지** 뜻에 항상 순종해라. 천국의 부름에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 너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고생할 각오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큰 시련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경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 세상은 내 말로 흔들릴 것이다. 심지어 내 친구인 너희도, 내가 너희의 혼동된 정신에게 무엇을 드러내는지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는 표적을 찾는 세대를 위해 수고하러 나아간다.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내 사명의 핵심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더디게 인식할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물가에 서서 기도했다: “내 **아버지**여, 이 어린 자들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의심이 있음에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이제 하나 되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7. 4개월의 훈련

4개월 -- 곧 3월, 4월, 5월, 6월 --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됐으며; **예수**께서는 여섯 동역자와 친동생 **야고보**에게, 100번 이상의 길고 진지한,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했다. **유다**는 그의 가족 가운데 하나가 아픈 연고로 이 수업에 거의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그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나, **마리아**는 지연되고 활동이 없는 이 여러 달 동안 아들에게 거의 절망했다. **가나**에서 고조됐던 신앙은 이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마리아**는 항상 되풀이했던 푸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가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많이 수고했다.

이 4개월 동안 내내, 그의 친동생 하나를 포함하는 이 일곱 신자는 **예수**와 점점 더 친하게 사귀었으며; 이 **하나님** 사람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그를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그렇게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이 그의 신성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비길 데 없이 품위 있는 인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곧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믿는 자 전체 무리를 혹

come through the great change which my Father will have wrought in your hearts and in the hearts of those who shall be called to join you in the councils of the kingdom. You are now my friends; I trust you and I love you; you are soon to become my personal associates. Be patient, be gentle. Be ever obedient to the Father's will. Make yourselves ready for the call of the kingdom. While you will experience great joy in the service of my Father, you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rouble, for I warn you that it will be only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many will enter the kingdom. But those who have found the kingdom, their joy will be full, and they shall be called the blest of all the earth. But do not entertain false hope; the world will stumble at my words. Even you, my friends, do not fully perceive what I am unfolding to your confused minds. Make no mistake; we go forth to labor for a generation of sign seekers. They will demand wonder-working as the proof that I am sent by my Father, and they will be slow to recognize in the revelation of my Father's love the credentials of my mission.”

137:6.6 (1533.4) That evening, when they had returned to the land, before they went their way, Jesus, standing by the water's edge, prayed: “My Father, I thank you for these little ones who, in spite of their doubts, even now believe. And for their sakes have I set myself apart to do your will. And now may they learn to be one, even as we are one.”

7. FOUR MONTHS OF TRAINING

137:7.1 (1533.5) For four long months — March, April, May, and June — this tarrying time continued; Jesus held over one hundred long and earnest, though cheerful and joyous, sessions with these six associates and his own brother James. Owing to sickness in his family, Jude seldom was able to attend these classes. James, Jesus' brother, did not lose faith in him, but during these months of delay and inaction Mary nearly despaired of her son. Her faith, raised to such heights at Cana, now sank to new low levels. She could only fall back on her so oft-repeated exclamation: “I cannot understand him. I cannot figure out what it all means.” But James's wife did much to bolster Mary's courage.

137:7.2 (1534.1) Throughout these four months these seven believers, one his own brother in the flesh, were getting acquainted with Jesus; they were getting used to the idea of living with this God-man. Though they called him Rabbi, they were learning not to be afraid of him. Jesus possessed that matchless grace of personality which enabled him so to live among them that they were not dismayed by his divinity. They found it really easy to be “friends with God,” God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is time of waiting severely tested the entire group of believers.

독하게 시험했다. 아무 일도, 정말로 아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날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한편, 밤마다 **예수** 앞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비길 데 없는 **예수**의 인격으로 인해, 그리고 밤마다 그가 들려주는 품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 단합했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기다림과 배움의 기간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요한**이 **유대지방**에서 전도를 계속하는 동안 **갈릴리**에서 천국에 대한 전도를 시작하자고, 반복해서 **예수**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몬**아, 인내심을 가져라.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종종 진정시키려고 했다. **안드레**는 **예수**의 인간적 자연스러움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 그토록 **하나님**과 가깝게 살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 깊을 수 있는 지 생각할 때마다, 그는 힘이 솟았다.

예수께서는 이 전체 기간에 회당에서 단지 두 번 설교했다. 이 여러 주간의 기다림이 끝날 무렵이 되자, 그의 세례와 **가나**에서의 포도주에 관한 소문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더 이상 명백한 기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벳새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음에도, 이 이상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는 곧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엄탐꾼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 썼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매우 조용히 일하고 있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다리던 이때, **예수**께서는 **팔레스틴**의 여러 다른 종교 집단과 정치 당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동역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다. **예수**는 항상: “우리는 그들 모두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서기관과 랍비들을 합쳐서 **바리새인**이라고 칭했다. 그들은 자기네끼리 “동역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유대인** 가운데 진취적인 집단이었고, **히브리** 성서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많은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었고, 이것은 후기 예언서인 **다니엘**에서만 언급된 교리였다.

사두개인은 제사장들과 어떤 부유층 **유대인**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시행할 때 세부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진정으로 종파(宗派)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모임이었다.

에세네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 분파로서 **마카비** 반란 동안 시작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격 조건이 **바리새인**보다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많은 신조와 관행을 받아들였고, 수도원에서 형제관계로 살면서 결혼을 금했으며, 모든

Nothing, absolutely nothing, miraculous happened. Day by day they went about their ordinary work, while night after night they sat at Jesus' feet. And they were held together by his matchless personality and by the gracious words which he spoke to them evening upon evening.

137:7.3 (1534.2) This period of waiting and teaching was especially hard on Simon Peter. He repeatedly sought to persuade Jesus to launch forth with the preaching of the kingdom in Galilee while John continued to preach in Judea. But Jesus' reply to Peter ever was: “Be patient, Simon. Make progress. We shall be none too ready when the Father calls.” And Andrew would calm Peter now and then with his more seasoned and philosophic counsel. Andrew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human naturalness of Jesus. He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how one who could live so near God could be so friendly and considerate of men.

137:7.4 (1534.3) Throughout this entire period Jesus spoke in the synagogue but twice. By the end of these many weeks of waiting the reports about his baptism and the wine of Cana had begun to quiet down. And Jesus saw to it that no more apparent miracles happened during this time. But even though they lived so quietly at Bethsaida, reports of the strange doings of Jesus had been carried to Herod Antipas, who in turn sent spies to ascertain what he was about. But Herod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preaching of John. He decided not to molest Jesus, whose work continued along so quietly at Capernaum.

137:7.5 (1534.4) In this time of waiting Jesus endeavored to teach his associates what their attitude should be toward the various religious groups and the political parties of Palestine. Jesus' words always were, “We are seeking to win all of them, but we are not of any of them.”

137:7.6 (1534.5) The scribes and rabbis, taken together, were called Pharisees. They referred to themselves as the “associates.” In many ways they were the progressive group among the Jews, having adopted many teachings not clearly found in the Hebrew scriptures, such as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 doctrine only mentioned by a later prophet, Daniel.

137:7.7 (1534.6) The Sadducees consisted of the priesthood and certain wealthy Jews. They were not such sticklers for the details of law enforcement. The Pharisees and Sadducees were really religious parties, rather than sects.

137:7.8 (1534.7) The Essenes were a true religious sect, originating during the Maccabean revolt, whose requirements were in some respects more exacting than those of the Pharisees. They had adopted many Persian beliefs and practices, lived

소유물을 공유했다. 그들은 천사에 관한 교훈에 전문이었다.

열심당원은 열렬한 **유대** 애국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했다.

헤롯당원은, 순수한 정치 모임으로서 **헤롯** 왕조를 복원함으로써, **로마**의 직접 통치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했다.

팔레스틴 한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교훈과 유사한 많은 관점을 가졌음에도, “**유대인**은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비교적 작은 집단인 **나실인** 동우회를 포함해서 이 모임들과 종파들 전체는,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믿었다. 그들은 모두 민족의 구원자를 찾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은 사상 또는 관행에서 이 학파들 가운데 어느 하나와도 연합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다. **사람의 아들**은 **나실인**은 물론 **에세네**도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중에 복음 전파와 신자(信者)의 훈련을 위해 사도들을 내보냈을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쳤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계되는 영적 체험임을 일찍부터 가르쳤다.

그들이 적극적인 공적(公的) 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와 그 일곱 명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 매 주 이틀 저녁 회당에서 보냈다. 열정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이 지난 뒤 후일에, 사도들은 이 4개월이 **주님**과 교제했던 모든 나날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도움됐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을 과잉으로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수용력 한도를 벗어나서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8. 천국에 관한 설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이던, 6월 22일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려온 후 두 번째로 회당 설교대에 섰다.

“**천국**”에 관한 이 설교를 전파하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 배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as a brotherhood in monasteries, refrained from marriage,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They specialized in teachings about angels.

137:7.9 (1535.1) The Zealots were a group of intense Jewish patriots. They advocated that any and all methods were justified in the struggle to escape the bondage of the Roman yoke.

137:7.10 (1535.2) The Herodians were a purely political party that advocated emancipation from the direct Roman rule by a restoration of the Herodian dynasty.

137:7.11 (1535.3) In the very midst of Palestine there lived the Samaritans, with whom “the Jews had no dealings,” notwithstanding that they held many views similar to the Jewish teachings.

137:7.12 (1535.4) All of these parties and sects, including the smaller Nazarite brotherhood, believed in the sometime coming of the Messiah. They all looked for a national deliverer. But Jesus was very positive in making it clear that he and his disciples would not become allied to any of these schools of thought or practice. The Son of Man was to be neither a Nazarite nor an Essene.

137:7.13 (1535.5) While Jesus later directed that the apostles should go forth, as John had, preaching the gospel and instructing believers, he laid emphasis o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tid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unfailingly impressed upon his associates that they must “show forth love, compassion, and sympathy.” He early taught his followers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 spiritual experience having to do with the enthronement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7:7.14 (1535.6) As they thus tarried before embarking on their active public preaching, Jesus and the seven spent two evenings each week at the synagogue in the study of the Hebrew scriptures. In later years after seasons of intense public work, the apostles looked back upon these four months as the most precious and profitable of all their association with the Master. Jesus taught these men all they could assimilate. He did not make the mistake of overteaching them. He did not precipitate confusion by the presentation of truth too far beyond their capacity to comprehend.

8. SERMON ON THE KINGDOM

137:8.1 (1535.7) On Sabbath, June 22, shortly before they went out on their first preaching tour and about ten days after John’s imprisonment, Jesus occupied the synagogue pulpit for the second time since bringing his apostles to Capernaum.

137:8.2 (1535.8) A few days before the preaching of this sermon on “The Kingdom,” as Jesus was at

요한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드렸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자.”

예수께서 목공소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날은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이었다. 베드로는 목공소에서 달려 나갔고, 오후 중반쯤에 모든 동역자를 호숫가의 작은 숲에 모아놓은 다음, 예수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다른 작은 숲으로 기도하러 갔으므로,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그날 밤 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와 음식을 청할 때까지 그를 볼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돌아오는 안식일에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동생 야고보를 회당으로 보냈다. 그리고 회당 관리는 예수께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공적 생애에서 처음으로 당당해 보이려고 애썼던, 기억에 남을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전하기 전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야훼는 내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는 온 땅에 큰 임금이다.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자비가 임하리라. 야훼가 내 왕이시니 주께 영광의 돌릴지어다.”

그가 다 읽은 후에 말씀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묶인 자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모든 혼을 맞이할 것인데, 내 아버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의 사랑과 자비는 만민에게 해당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정신 속에 거하도록 자기 영(靈)을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을 모두 끝낼 때,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영적 이해와 신성한 의로움에 속하는 도래할 나라에서 너희가 견고히 서도록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권력이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내 나라가 도래하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왕자요, 무궁하신 아버지께 대한 계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자녀들은 이 세상 나라를 설립하고 확장시키려고 싸우지만, 내 제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영적 승리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일단 들어가고 나면, 기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work in the boatshop, Peter brought him the news of John's arrest. Jesus laid down his tools once more, removed his apron, and said to Peter: “The Father's hour has come. Let us make ready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137:8.3 (1535.9) Jesus did his last work at the carpenter bench on this Tuesday, June 18, A.D. 26. Peter rushed out of the shop and by midafternoon had rounded up all of his associates, and leaving them in a grove by the shore, he went in quest of Jesus. But he could not find him, for the Master had gone to a different grove to pray. And they did not see him until late that evening when he returned to Zebedee's house and asked for food. The next day he sent his brother James to ask for the privilege of speaking in the synagogue the coming Sabbath day. And the ruler of the synagogue was much pleased that Jesus was again willing to conduct the service.

137:8.4 (1536.1) Before Jesus preached this memorable sermon on the kingdom of God, the first pretentious effort of his public career, he read from the Scriptures these passages: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 holy people. Yahweh is our judge, Yahweh is our lawgiver, Yahweh is our king; he will save us. Yahweh is my king and my God. He is a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Loving-kindness is upon Israel in this kingdom. Blessed be the glory of the Lord for he is our King.”

137:8.5 (1536.2) When he had finished reading, Jesus said:

137:8.6 (1536.3) “I have come to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And this kingdom shall include the worshiping souls of Jew and gentile, rich and poor, free and bond, for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his love and his mercy are over all.

137:8.7 (1536.4) “The Father in heaven sends his spirit to indwell the minds of men, and when I shall have finished my work on earth, likewise shall the Spirit of Truth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the spirit of my Father and the Spirit of Truth shall establish you in the coming kingdom of spiritual understanding and divine righteousness.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e Son of Man will not lead forth armies in batt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throne of power or a kingdom of worldly glory. When my kingdom shall have come, you shall know the Son of Man as the Prince of Peace, the revelation of the everlasting Father. The children of this world fight for the establishment and enlargement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my disciples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y their moral decisions and by their spirit victories; and when they once enter therein, they shall find joy, righteousness, and eternal life.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로 구하고, 이처럼 내 **아버지**의 성품과 같은 고상한 성품 얻기를 애쓰기 시작하는 자는,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곧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는데: 어린아이의 신앙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에, 하늘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영**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정말로 **요한**은 회개에 대한 상징으로, 그리고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줬지만, 너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을 것이고, 봉사를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며,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피조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섬김으로써, 내가 그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곧 앉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동료를 기꺼이 섬기면,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 나라는, 별판의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씨와 같다. 그것은 다 익은 열매를 금방 맺지 않는다. 사람의 혼 속에서 천국이 설립되는 때부터, 천국이 영구적인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완전한 열매로서 온전히 무르익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선언하는 이 나라는, 권력과 풍요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완전케 하는 봉사에서, 진보하는 의로움과 증가하는 기쁨으로 이뤄진 삶이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함 같이 그들도 결국 완전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왔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선포하며, 도래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신성한 휴식을 즐길 것이다. 이 세상 물질로 너희에게 비용이 얼마나 부과되든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대가(代價)를 치르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몇 갑절의 많은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고, 다가오는 시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군대의 행

137:8.8 (1536.5) “Those who first seek to enter the kingdom, thus beginning to strive for a nobility of character like that of my Father, shall presently possess all else that is needful. But I say to you in all sincerity: Unless you seek entrance into the kingdom with the faith and trusting dependence of a little child, you shall in no wise gain admission.

137:8.9 (1536.6) “Be not deceived by those who come saying here is the kingdom or there is the kingdom, for my Father's kingdom concerns not things visible and material. And this kingdom is even now among you, for where the spirit of God teaches and leads the soul of man, there in reality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this kingdom of God 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137:8.10 (1536.7) “John did indeed baptize you in token of repentance an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but when you enter the heavenly kingdom,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137:8.11 (1536.8) “In my Father's kingdom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only those who seek perfection through service, for I declare that he who would be great in my Father's kingdom must first become server of all. If you are willing to serve your fellows, you shall sit down with me in my kingdom, even as, by serving in the similitude of the creature, I shall presently sit down with my Father in his kingdom.

137:8.12 (1536.9) “This new kingdom is like a seed growing in the good soil of a field. It does not attain full fruit quickly. There is an interval of tim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in the soul of man and that hour when the kingdom ripens into the full fruit of everlasting righteousness and eternal salvation.

137:8.13 (1536.10) “And this kingdom which I declare to you is not a reign of power and plenty.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a matter of meat and drink but rather a life of progressive righteousness and increasing joy in the perfecting service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has not the Father said of his children of the world, ‘It is my will that they should eventually be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137:8.14 (1537.1) “I have come to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I have not come to add to the heavy burdens of those who would enter this kingdom. I proclaim the new and better way, and those who are able to enter the coming kingdom shall enjoy the divine rest. And whatever it shall cost you in the things of the world, no matter what price you may pay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 shall receive manifold more of joy and spiritual progress in this world,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137:8.15 (1537.2)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waits not upon marching armies, upon overturned

진이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을 뒤집어엎거나, 사로잡는 멍에를 꺾은 결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자는 풍부한 자유와 기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영구적인 영토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로 상승할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낙원에서 그의 영광의 오른 편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체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완전한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모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은 와서,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회개하라고 전파했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앙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값이라고 선포하러 왔다. 내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 제자들도 경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약 3분의 1은, 완전하게 납득할 수는 없었음에도 그 메시지를 믿었으며; 약 3분의 1은 기대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순수하게 영적인 개념을 마음 속에서 거부할 준비가 돼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많은 사람은 그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kingdoms of this world, nor upon the breaking of captive yokes.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all who enter therein shall find abundant liberty and joyous salvation.

137:8.16 (1537.3) “T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dominion. Those who enter the kingdom shall ascend to my Father;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right hand of his glory in Paradise. And all wh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come the sons of God, and in the age to come so shall they ascend to the Father. And I have not come to call the would-be righteous but sinners and all who hunger and thirst for the righteousness of divine perfection.

137:8.17 (1537.4) “John came preaching repentance to prepare you for the kingdom; now have I come proclaiming faith, the gift of God, as the price of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If you would but believe that my Father loves you with an infinite love, then you are in the kingdom of God.”

137:8.18 (1537.5) When he had thus spoken, he sat down. All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His disciples marveled. But the people were not prepared to receive the good news from the lips of this God-man. About one third who heard him believed the message even though they could not fully comprehend it; about one third prepared in their hearts to reject such a purely spiritual concept of the expected kingdom, while the remaining one third could not grasp his teaching, many truly believing that he “was beside himself.”

제 138편. 천국 사자의 훈련

⇨ 137

유랜시아 책

139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8편
천국 사자의 훈련

섹션

소개

1. 최종 지시
2. 여섯 명을 택하심
3.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4.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5.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6. 집중적인 훈련 주간
7. 또 하나의 실망
8. 열두 사도의 첫 업무
9. 5개월의 시험
10. 열두 사도의 조직

소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전파한 후 그날 오후에, 예수께서는 여섯 명의 사도를 불러 모으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비로소 알려줬다.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이 회담에 부름 받지 못했으므로 기분이 매우 상했다. 그들은 이때까지 자신들도 예수의 핵심 동역자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의 이 사도 지휘자 대원에 가까운 친족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계획했다. 선택된 소수에서 야고보와 유다를 제외시킨 이 일은, 가나에서의 체험 이후로 줄곧 어머니를 멀리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예수와 그 가족 사이의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시발점이었다. 이런 상황은 그가 공적{公的}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됐고--곧 그들은 그를 거의 배척했고--, 이런 불화는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동요하는 신앙과 희망의 태도, 그리고 증대되는 실망, 창피함, 및 절망의 감정들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단지 가장 어린 룻만이 가장인 오빠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였다.

PAPER 138
TRAINING THE KINGDOM'S
MESSENGERS

SECTIONS

Introduction

1. Final Instructions
2. Choosing the Six
3. The Call of Matthew and Simon
4. The Call of the Twins
5. The Call of Thomas and Judas
6. The Week of Intensive Training
7. Another Disappointment
8. First Work of the Twelve
9. Five Months of Testing
10. Organization of the Twelve

INTRODUCTION

138:0.1 (1538.1) AFTER preaching the sermon on “The Kingdom,” Jesus called the six apostles together that afternoon and began to disclose his plans for visiting the cities around and about the Sea of Galilee. His brothers James and Jude were very much hurt because they were not called to this conference. Up to this time they had regarded themselves as belonging to Jesus’ inner circle of associates. But Jesus planned to have no close relatives as members of this corps of apostolic directors of the kingdom. This failure to include James and Jude among the chosen few, together with his apparent aloofness from his mother ever since the experience at Cana, was the starting point of an ever-widening gulf between Jesus and his family. This situation continued throughout his public ministry — they very nearly rejected him — and these differences were not fully removed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His mother constantly wavered between attitudes

부활이 있을 때까지도, **예수**의 온 가족은 그의 사역에 거의 협력하지 않았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만 존경받지 못한다면,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그를 이해심 있게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1. 최종 지시

다음 날, 서기 26년 6월 23일 일요일에, **예수**께서는 여섯 명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둘씩 짝 지어 나가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라고 명했다. 세례 주는 것을 금했고, 공개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나중에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하겠지만, 당분간 여러 이유로 인해, 동포와 몸소 접촉하면서 실질 체험을 획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첫 여행이 전적으로 **개인 업무**가 되도록 의도했다. 그의 이런 발표가 사도들을 실망시키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천국 선포를 시작하는 이유를,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알았으므로, 원기왕성하게 자신만만한 열정으로 출발했다. 이들을 둘씩 짝 지어 보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케레사**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빌립**과 **나다니엘**은 **타리키아**로 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첫 두 주간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떠난 후 천국의 일을 계속할 열두 명의 사도를 임명하기 원한다고 그들에게 발표했고, 임안된 사도 단체 회원으로, 전에 전도된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선정하도록 그들 각자에게 위임했다. **요한**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요단**에서부터 **주님**과 계속 함께 했고, 천국을 위한 우리의 첫 책무인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들어왔는데, 이 여섯 사람도 우리와 한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요한**아, 너희가 선택할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후,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떠났다.

여섯 명은, 각자 새로운 사도를 한 명씩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에 대해 토론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을 마치고까지, 일하러 가지 않고 모여 있었다. 그들은 결국 **안드레**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각자 사역하기 위해 떠났다. **안드레**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님**이 옳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선생들이 더 필요한데, 이 여섯 명의 새 사도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길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 헤어지던 이날 아침에, 각자의 마음 속에는 드러내지 않은 약간

of fluctuating faith and hope, and increasing emotions of disappointment, humiliation, and despair. Only Ruth, the youngest, remained unwaveringly loyal to her father-brother.

138:0.2 (1538.2)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Jesus' entire family had very little to do with his ministry. If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save in his own country, he is not without understanding appreciation save in his own family.

1. FINAL INSTRUCTIONS

138:1.1 (1538.3) The next day, Sunday, June 23, A.D. 26, Jesus imparted his final instructions to the six. He directed them to go forth, two and two, to t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He forbade them to baptize and advised against public preaching. He went on to explain that later he would permit them to preach in public, but that for a season, and for many reasons, he desired them to acquire practical experience in dealing personally with their fellow men. Jesus purposed to make their first tour entirely one of *personal work*. Although this announcement was something of a disappointment to the apostles, still they saw, at least in part, Jesus' reason for thus beginning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and they started out in good heart and with confident enthusiasm. He sent them forth by twos, James and John going to Kheresa, Andrew and Peter to Capernaum, while Philip and Nathaniel went to Tarichea.

138:1.2 (1538.4) Before they began this first two weeks of service, Jesus announced to them that he desired to ordain twelve apostles to continue the work of the kingdom after his departure and authorized each of them to choose one man from among his early converts for membership in the projected corps of apostles. John spoke up, asking: “But, Master, will these six men come into our midst and share all things equally with us who have been with you since the Jordan and have heard all your teaching in preparation for this, our first labor for the kingdom?” And Jesus replied: “Yes, John, the men you choose shall become one with us, and you will teach them all that pertains to the kingdom, even as I have taught you.” After thus speaking, Jesus left them.

138:1.3 (1539.1) The six did not separate to go to their work until they had exchanged many words in discussion of Jesus' instruction that each of them should choose a new apostle. Andrew's counsel finally prevailed, and they went forth to their labors. In substance Andrew said: “The Master is right; we are too few to encompass this work. There is need for more teachers, and the Master has manifested great confidence in us inasmuch as he has intrusted us with the choosing of these six new apostles.” This morning, as they separated to

의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곧 **예수**를 보고 싶어지게 될 것을 알았으며, 두렵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천국이 시작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여섯 명은 두 주간 수고한 후에, 논의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요셉**, **시몬**, 그리고 근처에 사는 다른 가족을 만나려고 **나사렛**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았다.

사도들이 이 사명을 위해 떠나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자신의 잠재적 권능을 사용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싶은 큰 유혹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한 번 더 단념했다.

2. 여섯 명을 택하심

여섯 명의 이번 첫 선교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국, 종교란 순수하게 온전히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임을 더 확실히 깨달으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그들은, 종교적 위안과 영적 원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에 일반인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알기 시작했다. **예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 먼저 말하려고 했지만, **안드레**가 책임을 맡아 한 명씩 불러서, **주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게 했고, 새로운 여섯 사도에 대한 추천도 제시하게 했다.

각자 새 사도가 되도록 선택한 사람을 발표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추천에 대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 찬반을 물었으며; 그리하여 여섯 명의 새로운 사도 모두가, 기존의 여섯 명 전체에게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이 후보자들을 함께 방문하고 그들을 봉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선택된 사도는 다음과 같았다:

1. **마태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이었고, 그의 사무실은 **바타니아** 경계에 가까운 도시 동쪽에 있었다. **안드레**가 그를 선택했다.

2. **도마 디두모**는 **타리키아** 지방의 어부였는데, 한때는 **가다라**에서 목수와 석공 일을 했다. **빌립**이 그를 선택했다.

3. **야고보 알패오**는 **케레사**의 어부이자 농부였으며, **야고보 세베대**에게 선택받았다.

4. **유다 알패오**는 **야고보 알패오**의 쌍둥이 형

go to their work, there was a bit of concealed depression in each heart.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miss Jesus, and besides their fear and timidity, this was not the way they had pictured the kingdom of heaven being inaugurated.

138:1.4 (1539.2)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six were to labor for two weeks, after which they were to return to the home of Zebedee for a conference. Meantime Jesus went over to Nazareth to visit with Joseph and Simon and other members of his family living in that vicinity. Jesus did everything humanly possible, consistent with his dedica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to retain the confidence and affection of his family. In this matter he did his full duty and more.

138:1.5 (1539.3) While the apostles were out on this mission, Jesus thought much about John, now in prison. It was a great temptation to use his potential powers to release him, but once more he resigned himself to “wait upon the Father's will.”

2. CHOOSING THE SIX

138:2.1 (1539.4) This first missionary tour of the six was eminently successful. They all discovered the great value of direct and personal contact with men. They returned to Jesus more fully realizing that, after all, religion is purely and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They began to sense how hungry were the common people to hear words of religious comfort and spiritual good cheer. When they assembled about Jesus, they all wanted to talk at once, but Andrew assumed charge, and as he called upon them one by one, they made their formal reports to the Master and presented their nominations for the six new apostles.

138:2.2 (1539.5) Jesus, after each man had presented his selection for the new apostleships, asked all the others to vote upon the nomination; thus all six of the new apostles were formally accepted by all of the older six. Then Jesus announced that they would all visit these candidates and give them the call to service.

138:2.3 (1539.6) The newly selected apostles were:

138:2.4 (1539.7) 1. *Matthew Levi*, the customs collector of Capernaum, who had his office just to the east of the city, near the borders of Batanea. He was selected by Andrew.

138:2.5 (1539.8) 2. *Thomas Didymus*, a fisherman of Tarichea and onetime carpenter and stone mason of Gadara. He was selected by Philip.

138:2.6 (1539.9) 3. *James Alpheus*, a fisherman and farmer of Kheresa, was selected by James Zebedee.

138:2.7 (1539.10) 4. *Judas Alpheus*, the twin brother of

제요, 그 역시 어부였으며, **요한 세베대**에게 선택 받았다.

5. **열심당 시몬**은, **열심당**이라는 애국자 조직에서 높은 관원이었는데, **예수**의 사도로 참여하기 위해 그 직위를 포기했다. **열심당**에 가담하기 전에는 상인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선택했다.

6. **가롯 유다**는 **여리고**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세레 요한**에게 동조했고, **사두개인**인 그의 부모는 그와 인연을 끊었다. **예수**의 사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재정을 맡아본 경력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그들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나다니엘**이 그에게 권유했다. **유다**는 열두 사도 중에서 유일한 **유대지방** 사람이었다.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들이 보고하는 제부사항을 들으면서, **예수**께서는 그 여섯 명과 하루 종일 같이 지냈는데, 관련시킬만한 흥미 있고 유익한 체험을 그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일하도록 내보내는 **주님**의 계획의 지혜를 이제 알게 됐다.

3.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다음 날, **예수**와 여섯 명은 세관 징수원인 **마태**를 부르러 갔다. **마태**는 장부를 정리하고 동생에게 업무 인계를 끝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징세 사무실에 가까이 갔을 때, **안드레**가 **예수**와 함께 다가갔고, **예수**께서 **마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와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마태는 자신이 마련한 그날 저녁 연회에 대해 **예수**께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주빈{主賓}이 돼준다면, 적어도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찬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사도로 초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시몬**도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의 허락을 받았다.

마태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끝낸 후에, 그들은 모두 **베드로**와 함께 **시몬**을 부르러 갔고, 이제 그의 조카가 대신 맡아보는 오래된 사무실에서 **시몬**을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를 **시몬**에게 모시고 가자, **주님**은 그 열성 애국자를 환영하면서,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그들은 모두 **마태**의 집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정치와 종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레위** 가족이 오랫동안 상업과 세금 징수하는 일에 종사해왔으므로, **마태**가 이 연회에 초대된 손님 중에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

James Alpheus, also a fisherman, was selected by John Zebedee.

138:2.8 (1540.1) 5. Simon Zelotes was a high officer in the patriotic organization of the Zealots, a position which he gave up to join Jesus' apostles. Before joining the Zealots, Simon had been a merchant. He was selected by Peter.

138:2.9 (1540.2) 6. Judas Iscariot was an only son of wealthy Jewish parents living in Jericho. He had become attached to John the Baptist, and his Sadducee parents had disowned him. He was looking for employment in these regions when Jesus' apostles found him, and chiefly because of his experience with finances, Nathaniel invited him to join their ranks. Judas Iscariot was the only Judean among the twelve apostles.

138:2.10 (1540.3) Jesus spent a full day with the six, answering their questions and listening to the details of their reports, for they had many interesting and profitable experiences to relate. They now saw the wisdom of the Master's plan of sending them out to labor in a quiet and personal manner before the launching of their more pretentious public efforts.

3. THE CALL OF MATTHEW AND SIMON

138:3.1 (1540.4) The next day Jesus and the six went to call upon Matthew, the customs collector. Matthew was awaiting them, having balanced his books and made ready to turn the affairs of his office over to his brother. As they approached the toll house, Andrew stepped forward with Jesus, who, looking into Matthew's face, said, “Follow me.” And he arose and went to his house with Jesus and the apostles.

138:3.2 (1540.5) Matthew told Jesus of the banquet he had arranged for that evening, at least that he wished to give such a dinner to his family and friends if Jesus would approve and consent to be the guest of honor. And Jesus nodded his consent. Peter then took Matthew aside and explained that he had invited one Simon to join the apostles and secured his consent that Simon be also bidden to this feast.

138:3.3 (1540.6) After a noontide luncheon at Matthew's house they all went with Peter to call upon Simon the Zealot, whom they found at his old place of business, which was now being conducted by his nephew. When Peter led Jesus up to Simon, the Master greeted the fiery patriot and only said, “Follow me.”

138:3.4 (1540.7) They all returned to Matthew's home, where they talked much about politics and religion until the hour of the evening meal. The Levi family had long been engaged in business and tax gathering; therefore many of the guests bidden to

인"이라고 일컬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당시에 이런 종류의 연회_만찬에 저명인사가 참석하게 되면,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회석상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식사에 참석한 귀빈을 관찰하거나, 그의 대화 또는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이런 색다른 사교 모임에서 **예수**의 품행을 관찰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만찬이 진행됨에 따라서,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은 최고의 흥겨움에 도달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쾌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시하던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그토록 낙천적이고 속편하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악의가 가득한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의 행동에 대해 **베드로**에게 비난했다.“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경망스럽게 즐기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어떻게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비난의 말을 그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고 말씀했다:“**마태**와 **시몬**을 우리 공동체로 환영해 맞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너희의 편안함과 즐겁게 친교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기쁘지만, 너희는 더 많이 기뻐해야 하는데, 하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더 풍성히 즐기게 될, 도래하는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너희 가운데 다수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비난하면서 서 있는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짓밟힌 자들에게 기쁨을, 도덕적으로 포로 된 자들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쓸데 있음을 내가 다시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의 눈에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는데:의로운 성품과高尚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비종교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이라고 알려진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열심당** **시몬**이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원했으나, **안드레**는, 앞으로 이뤄질 천국이 **열심당**의 운동과 혼동되는 것을 **예수**께서 원치 않음을 알았으므로, 어떤 공개적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다.

예수와 사도들은 그날 밤 **마태**의 집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사실:곧 **예수**의 선함과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this banquet by Matthew would have been denominated “publicans and sinners” by the Pharisees.

138:3.5 (1540.8) In those days, when a reception-banquet of this sort was tendered a prominent individual, it was the custom for all interested persons to linger about the banquet room to observe the guests at meat and t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speeches of the men of honor. Accordingly, most of the Capernaum Pharisees were present on this occasion to observe Jesus' conduct at this unusual social gathering.

138:3.6 (1540.9) As the dinner progressed, the joy of the diners mounted to heights of good cheer, and everybody was having such a splendid time that the onlooking Pharisees began, in their hearts, to criticize Jesus for his participation in such a lighthearted and carefree affair. Later in the evening, when they were making speeches, one of the more malignant of the Pharisees went so far as to criticize Jesus' conduct to Peter, saying: “How dare you to teach that this man is righteous when he eats with publicans and sinners and thus lends his presence to such scenes of careless pleasure making.” Peter whispered this criticism to Jesus before he spoke the parting blessing upon those assembled. When Jesus began to speak, he said: “In coming here tonight to welcome Matthew and Simon to our fellowship, I am glad to witness your lightheartedness and social good cheer, but you should rejoice still more because many of you will find entrance into the coming kingdom of the spirit, wherein you shall more abundantly enjoy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o you who stand about criticizing me in your hearts because I have come here to make merry with these friends, let me say that I have come to proclaim joy to the socially downtrodden and spiritual liberty to the moral captives. Need I remind you that they who are whole need not a physician, but rather those who are sick? I have co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138:3.7 (1541.1) And truly this was a strange sight in all Jewry: to see a man of righteous character and noble sentiments mingling freely and joyously with the common people, even with an irreligious and pleasure-seeking throng of publicans and reputed sinners. Simon Zelotes desired to make a speech at this gathering in Matthew's house, but Andrew, knowing that Jesus did not want the coming kingdom to become confused with the Zealots' movement, prevailed upon him to refrain from making any public remarks.

138:3.8 (1541.2) Jesus and the apostles remained that night in Matthew's house, and as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they spoke of but one thing: the goodness and friendliness of Jesus.

4.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다음 날, 그들 아홉 명은 모두, 다음 두 사도, 즉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가 추천한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를 정식으로 부르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케레스**로 건너갔다. 어부인 이 쌍둥이 형제는, **예수**와 사도들이 올 것을 알았으므로,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케레스** 어부들에게 **주님**을 소개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그들이 함께 지낸 그날 오후에, **예수**께서는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충분히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어떤 피조물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늘 나라는 모든 남녀에게 열려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쓸지 모르는 어떤 굶주린 혼 앞에서든지, 아무도 자비의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려다보실 때, 그들 모두 똑같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죄인, **사두개인**이나 세리,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묶인 자와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하지 말라. 천국 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두에게 넓게 열려있다.”

그날 밤, **알패오**의 집에서 간소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쌍둥이 형제가 사도 일행에 가입했다. **예수**께서 그날 밤 늦게 사도들에게, 불순한 영들의 기원, 본성, 및 운명에 관해 처음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한 말씀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매우 쉬우나, 그의 교훈 가운데 다수는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밤에 휴식한 뒤에, 이제 열한 명이 된 전체 인원은 배를 타고 **타리키아**로 건너갔다.

5.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어부 **도마**와 방랑자 **유다**는, 어선(漁船)들이 정박하는 **타리키아**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만났고, **도마**는 그들을 가까이 있는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이때 **빌립**이, 자기가 사도로 추천한 **도마**를 소개했고, **나다니엘**은 **유대지방** 사람인 **가롯 유다**를 역시 정중하게 소개했다. **예수**께서는 **도마**를 바라보면서 말씀했다: “**도마**야, 너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말씀했다: “**유다**야,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이제 나는 너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겠는데, 네 **갈릴리** 형제들에게 항상 충성하게 되기 바란다. 나를 따르라.”

그들이 휴식을 끝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4. THE CALL OF THE TWINS

138:4.1 (1541.3) On the morrow all nine of them went by boat over to Kheresa to execute the formal calling of the next two apostles, James and Judas the twin sons of Alpheus, the nominees of James and John Zebedee. The fisherman twins were expecting Jesus and his apostles and were therefore awaiting them on the shore. James Zebedee presented the Master to the Kheresa fishermen, and Jesus, gazing on them, nodded and said, “Follow me.”

138:4.2 (1541.4) That afternoon, which they spent together, Jesus fully instructed them concerning attendance upon festive gatherings, concluding his remarks by saying: “All men are my brothers. My Father in heaven does not despise any creature of our making. The kingdom of heaven is open to all men and women. No man may close the door of mercy in the face of any hungry soul who may seek to gain an entrance thereto. We will sit at meat with all who desire to hear of the kingdom. As our Father in heaven looks down upon men, they are all alike. Refuse not therefore to break bread with Pharisee or sinner, Sadducee or publican, Roman or Jew, rich or poor, free or bond. The door of the kingdom is wide open for all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and to find God.”

138:4.3 (1541.5) That night at a simple supper at the Alpheus home, the twin brothers were received into the apostolic family. Later in the evening Jesus gave his apostles their first lesson dealing with the origin, nature, and destiny of unclean spirits,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import of what he told them. They found it very easy to love and admire Jesus but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many of his teachings.

138:4.4 (1542.1) After a night of rest the entire party, now numbering eleven, went by boat over to Tarichea.

5. THE CALL OF THOMAS AND JUDAS

138:5.1 (1542.2) Thomas the fisherman and Judas the wanderer met Jesus and the apostles at the fisher-boat landing at Tarichea, and Thomas led the party to his near-by home. Philip now presented Thomas as his nominee for apostleship and Nathaniel presented Judas Iscariot, the Judean, for similar honors. Jesus looked upon Thomas and said: “Thomas, you lack faith; nevertheless, I receive you. Follow me.” To Judas Iscariot the Master said: “Judas, we are all of one flesh, and as I receive you into our midst, I pray that you will always be loyal to your Galilean brethren. Follow me.”

138:5.2 (1542.3) When they had refreshed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의 본성과 활동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 얼마동안 열두 사도를 데리고 떠났지만, 그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놀라운 진리의 의미를, 그들은 이번에도 거의 납득하지 못했다. 한 사람은 한 면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한 면을 납득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의 가르침 전체를 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지닌 종교적 신념의 옛 형식에 **예수**의 새 복음을 맞추려는 실수를 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설립하려 왔다는 관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로운 계시였음을 감지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다음 날 열두 사도를 그들끼리 있게 했으며; 그들이 서로 친해지기 원했고, 자신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 그들끼리 의논하기를 바랐다. **주님**은 저녁 식사시간에 돌아왔고, 식사 후에 스라핌의 사역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사도들 가운데 몇 명은 그의 가르침을 납득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낸 후에,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세베대와 **살로메**는 아들 **다윗**과 같이 살려고 떠났으므로, 큰 집을 **예수**와 열두 사도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선택된 전도자들과 함께 조용한 **안식일**을 여기서 보냈으며; 천국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을 신중히 요약해서 말했고, 정부당국과 어떤 충돌이든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말씀했다. “집권자들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 과제는 내게 맡겨라. 너희는 **가이사**나 그 신하들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하지 말라.” **가롯 유다**가 **예수**를 한쪽으로 불러내서, 왜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는냐고 묻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의 태도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

themselves, Jesus took the twelve apart for a season to pray with them and to instruct them in the nature and work of the Holy Spirit, but again did they largely fail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ose wonderful truths which he endeavored to teach them. One would grasp one point and one would comprehend another, but none of them could encompass the whole of his teaching. Always would they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fit Jesus' new gospel into their old forms of religious belief. They could not grasp the idea that Jesus had come to proclaim a new gospel of salvation and to establish a new way of finding God; they did not perceive that he was a new revelation of the Father in heaven.

138:5.3 (1542.4) The next day Jesus left his twelve apostles quite alone; he wanted them to become acquainted and desired that they be alone to talk over what he had taught them. The Master returned for the evening meal, and during the after-supper hours he talked to them about the ministry of seraphim, and some of the apostles comprehended his teaching. They rested for a night and the next day departed by boat for Capernaum.

138:5.4 (1542.5) Zebedee and Salome had gone to live with their son David so that their large home could be turned over to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Here Jesus spent a quiet Sabbath with his chosen messengers; he carefully outlined the plans for proclaiming the kingdom and fully explained the importance of avoiding any clash with the civil authorities, saying: “If the civil rulers are to be rebuked, leave that task to me. See that you make no denunciations of Caesar or his servants.” It was this same evening that Judas Iscariot took Jesus aside to inquire why nothing was done to get John out of prison. And Judas was not wholly satisfied with Jesus' attitude.

6. 집중적인 훈련 주간

그다음 주간에는 집중적인 훈련 계획표가 진행됐다. 새로 뽑힌 여섯 사도는, 각자 자신을 추천한 자의 책임 아래, 그들이 천국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일에 대해 매일 철저히 돌이켜 봤다. 선배 사도들은, 후배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이 그때까지 **예수**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을 신중하게 복습했다. 밤에는 그들 모두 **예수**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세베대**의 정원에 모였다.

예수께서 휴식과 오락을 위해 주중 하루를 휴일로 정한 것은 이때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물질 생애의 여생을 보내는 동안 내내, 매주 하루 쉬는 이 계획을 꾸준히 지켰다. 그들은, 수요일에는 대개 정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매주 이런 휴일이 되면, **예수**께서는 보통 그들에게서 떠나면서 말씀

6. THE WEEK OF INTENSIVE TRAINING

138:6.1 (1542.6) The next week was devoted to a program of intense training. Each day the six new apostles were put in the hands of their respective nominators for a thoroughgoing review of all they had learned and experienced in preparation for the work of the kingdom. The older apostles carefully reviewed, for the benefit of the younger six, Jesus' teachings up to that hour. Evenings they all assembled in Zebedee's garden to receive Jesus' instruction.

138:6.2 (1542.7) It was at this time that Jesus established the mid-week holiday for rest and recreation. And they pursued this plan of relaxation for one day each week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material life. As a general rule, they never prosecuted their regular activities on Wednesday. On this weekly holiday Jesus would usually take

했다.“애들아, 가서 하루를 즐겨라. 천국의 힘든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너희가 예전에 하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기분을 즐기도록 해라.” 이 세상 생애의 이 기간에, 이런 하루의 휴식이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계획을 채택했다. **예수**께서는 교사였으며--곧 **주님**이었으며;동역자들은 그의 학생이었다--곧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가르친 것과, 후에 생길 수 있는 자신에 관한 교훈 사이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리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내 나라와 거기 관련된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나에 관해서** 또는 내 교훈에 관해서 전도함으로써,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계시한 것을 보여줘야 하겠지만, 내 믿음과 교훈에 관한 믿음과 교훈에 관련되도록 전설을 만들거나 어떤 종파를 만드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초기 교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내포돼 있지 않은 한, 될 수 있는 대로 사도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에서 세례 이후에 **예수**의 생애에는 단 한 가지 동기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낙원 아버지**를 더 낮게 드러내고 더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으며;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더 나은 길, 즉 신앙과 사랑의 길을 개척하는 자였다. 사도들에게 준 그의 충고는 항상:“가서 죄인을 찾으며;낙심한 자를 발견하고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으며;자신의 사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소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거나 시시하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인물에 온전히 만족했다. 그는 막대한 극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명에 매여 있었지만, 가장 조용하고 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기를 고집했으며;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않기 위해 몹시 애썼다. 그는 이제, 적어도 몇 달 동안 열두 사도와 함께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조용히 일할 계획을 세웠다.

himself away from them, saying: “My children, go for a day of play. Rest yourselves from the arduous labors of the kingdom and enjoy the refreshment that comes from reverting to your former vocations or from discovering new sorts of recreational activity.” While Jesus, at this period of his earth life, did not actually require this day of rest, he conformed to this plan because he knew it was best for his human associates. Jesus was the teacher — the Master; his associates were his pupils — disciples.

138:6.3 (1543.1) Jesus endeavored to make clear to his apostles the difference between his teachings and his *life among them* and the teachings which might subsequently spring up *about him*. Said Jesus: “My kingdom and the gospel related thereto shall be the burden of your message. Be not sidetracked into preaching about me and about my teachings.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portray my revelation of the Father in heaven but do not be misled into the bypaths of creating legends and building up a cult having to do with beliefs and teachings about my beliefs and teachings.” But again they did not understand why he thus spoke, and no man dared to ask why he so taught them.

138:6.4 (1543.2) In these early teachings Jesus sought to avoid controversies with his apostles as far as possible excepting those involving wrong concepts of his Father in heaven. In all such matters he never hesitated to correct erroneous beliefs. There was just *one* motive in Jesus' postbaptismal life on Urantia, and that was a better and truer revelation of his Paradise Father; he was the pioneer of the new and better way to God, the way of faith and love. Ever his exhortation to the apostles was: “Go seek for the sinners; find the downhearted and comfort the anxious.”

138:6.5 (1543.3) Jesus had a perfect grasp of the situation; he possessed unlimited power, which might have been utilized in the furtherance of his mission, but he was wholly content with means and personalities which most people would have regarded as inadequate and would have looked upon as insignificant. He was engaged in a mission of enormous dramatic possibilities, but he insisted on going about his Father's business in the most quiet and undramatic manner; he studiously avoided all display of power. And he now planned to work quietly, at least for several months, with his twelve apostles around about the Sea of Galilee.

7. 또 하나의 실망

예수께서는 다섯 달 동안 개인적으로 일하는 조용한 전도 운동을 하려고 계획했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사도들에게 말씀하지

7. ANOTHER DISAPPOINTMENT

138:7.1 (1543.4) Jesus had planned for a quiet missionary campaign of five months' personal work. He did not tell the apostles how long this

않았으며;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일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 날 아침 일찍, 그가 열두 사도에게 이 계획을 막 발표하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 및 **가롯 유다**가 **예수**께 와서 개인 면담을 청했다.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베드로**가 대답하게 말했다: “**주님**,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시기가 이제 무르익은 것인지 아닌지, 다른 동역자들의 요청으로 여쭙보려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천국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그리고 천국 설립에서 당신과 함께 저희 각자 맡게 될 직위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혼계조로 손을 들어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근처에 서있는 다른 사도들도 모이도록 손짓하면서 말씀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권좌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차지할 각자의 직위를 묻느냐? 내가 너희를 영적인 나라의 대사로 불렀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처럼, 너희도 곧, 아주 가까운 날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일에 나를 대신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천국 사자(使者)가 되도록 가르쳤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신성한 우월성을 갖는 다가오는 이 나라의 본성과 중요성을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느냐? 친구들아, 다시 한 번 내 말을 들어라. 내 나라가 권력으로 통치되거나 영광으로 지배된다는 관념을 너희 마음에서 지워 버려라. 진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곧 내 손에 주어지겠지만, 이 신성한 재능을,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다른 시대에는 너희가 진실로 권세와 영광 속에 나와 함께 앉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뜻에 따라 겸손한 복종으로 이 땅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역자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둘씩 짝 지워 기도하러 보내면서, 점심시간까지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중대한 시간이었던 이날 오전에,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했으며, **예수**께서 명령했던 대로 그에게 돌아왔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도래, **요단강**에서의 세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 최근에 여섯 사도를 뽑은 일, 그리고 친형제들을 그들로부터 제외시킨 점에 대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 역시 때어내려고 애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도들은 짧았지만 진지한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일어나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헌신을 선언했으며, **도마**가 이것을 “다가오는 이 나라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was to last; they worked from week to week. And early on this first day of the week, just as he was about to announce this to his twelve apostles, Simon Peter, James Zebedee, and Judas Iscariot came to have private converse with him. Taking Jesus aside, Peter made bold to say: “Master, we come at the behest of our associates to inquire whether the time is not now ripe to enter into the kingdom. And will you proclaim the kingdom at Capernaum, or are we to move on to Jerusalem? And when shall we learn, each of us, the positions we are to occupy with you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 ” and Peter would have gone on asking further questions, but Jesus raised an admonitory hand and stopped him. And beckoning the other apostles standing near by to join them, Jesus said: “My little children,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Have I not made it plain to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 have told you many times that I have not come to sit on David’s throne, and now how is it that you are inquiring which place each of you will occupy in the Father’s kingdom? Can you not perceive that I have called you as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Do you not understand that soon, very soon, you are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and 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even as I now represent my Father who is in heaven? Can it be that I have chosen you and instructed you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and yet you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is coming kingdom of divine pre-eminence in the hearts of men? My friends, hear me once more. Banish from your minds this idea that my kingdom is a rule of power or a reign of glory. Indeed,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will presently be given into my hands, but it is not the Father’s will that we use this divine endowment to glorify ourselves during this age. In another age you shall indeed sit with me in power and glory, but it behooves us now to submit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go forth in humble obedience to execute his bidding on earth.”

138:7.2 (1544.1) Once more were his associates shocked, stunned. Jesus sent them away two and two to pray, asking them to return to him at noontime. On this crucial forenoon they each sought to find God, and each endeavored to cheer and strengthen the other, and they returned to Jesus as he had bidden them.

138:7.3 (1544.2) Jesus now recounted for them the coming of John, the baptism in the Jordan, the marriage feast at Cana, the recent choosing of the six, and the withdrawal from them of his own brothers in the flesh, and warned them that the enemy of the kingdom would seek also to draw them away. After this short but earnest talk the apostles all arose, under Peter’s leadership, to declare their undying devotion to their Master and to pledge their unswerving loyalty to the kingdom,

못하더라도”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물어봤으며; 그들의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왔다. 두 주간 겨우 지탱할 만큼의 기금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그가 말씀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바닷가에서 두 주간 머물면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며; 너희는 그동안, 처음 선택된 사도인 **안드레**의 지도 아래, 너희가 앞으로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즉 현재의 개인 사역은 물론,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信者}들을 가르치도록 너희를 임명할 때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 조직을 갖춰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사기가 충천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하려고 계획한다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첫 암시였다.

사도들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자체 조직을 마무리했고, 모두가 고기잡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날 고기 잡으러 나가는 데 소용될 배와 그물을 준비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어부였고, **예수** 자신도 노련한 사공이자 어부였다. 그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하게 됐던 배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께서 손수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했다.

예수께서는 두 주 동안 고기를 잡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 “다음에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 고기를 잡았고, **예수**께서는 매일 밤 각각 다른 무리와 함께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는 훌륭한 어부, 명량한 동무, 그리고 영감을 주는 친구였으며; 그들이 그와 함께 일하면 할수록,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 어느 날 **마태**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덜 존경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점점 더 납득하지 못하겠음에도, 더 사랑하게 된다.”

두 주간은 고기를 잡고 두 주간은 천국을 위한 개인 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이 계획은, 다섯 달 이상 계속됐으며, 심지어 **요한**이 감금되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박해{迫害}가 그칠 때인, 서기 26년 이 해 말까지 계속됐다.

8. 열두 사도의 첫 업무

두 주간은 고기잡이를 끝낸 후에, 열두 사도의 회계로 활동하도록 뽑힌 **가롯 유다**가, 부양가

as Thomas expressed it, “To this coming kingdom, no matter what it is and even if I do not fully understand it.” They all truly *believed in Jesus*, even though they did not fully comprehend his teaching.

138:7.4 (1544.3) Jesus now asked them how much money they had among them; he also inquired as to what provision had been made for their families. When it developed that they had hardly sufficient funds to maintain themselves for two weeks, he said: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that we begin our work in this way. We will remain here by the sea two weeks and fish or do whatever our hands find to do; and in the meantime, under the guidance of Andrew, the first chosen apostle, you shall so organize yourselves as to provide for everything needful in your future work, both for the present personal ministry and also when I shall subsequently ordain you to preach the gospel and instruct believers.” They were all greatly cheered by these words; this was their first clear-cut and positive intimation that Jesus designed later on to enter upon more aggressive and pretentious public efforts.

138:7.5 (1544.4) The apostles spent the remainder of the day perfecting their organization and completing arrangements for boats and nets for embarking on the morrow's fishing as they had all decided to devote themselves to fishing; most of them had been fishermen, even Jesus was an experienced boatman and fisherman. Many of the boats which they used the next few years had been built by Jesus' own hands. And they were good and trustworthy boats.

138:7.6 (1544.5) Jesus enjoined them to devote themselves to fishing for two weeks, adding, “And then will you go forth to become fishers of men.” They fished in three groups, Jesus going out with a different group each night. And they all so much enjoyed Jesus! He was a good fisherman, a cheerful companion, and an inspiring friend; the more they worked with him, the more they loved him. Said Matthew one day: “The more you understand some people, the less you admire them, but of this man, even the less I comprehend him, the more I love him.”

138:7.7 (1545.1) This plan of fishing two weeks and going out to do personal work in behalf of the kingdom for two weeks was followed for more than five months, even to the end of this year of A.D. 26, until after the cessation of those special persecutions which had been directed against John's disciples subsequent to his imprisonment.

8. FIRST WORK OF THE TWELVE

138:8.1 (1545.2) After disposing of the fish catches of two weeks, Judas Iscariot, the one chosen to act

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여섯으로 똑같이 나눴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서기 26년 8월 중순 무렵에, 그들은 **안드레**가 각자에게 할당한 일터로 둘씩 짝지어 나갔다. **예수**께서는, 첫 두 주는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두 번째 두 주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들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두 사람씩 함께 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중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전에, 각 쌍과 함께 적어도 한 번씩 나갔다.

예수께서는, 고행이나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다음을 논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명했다:

1.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가 감옥에 갇힌 것.

2. 세례 받던 날 들었던 목소리. **예수**께서는, “소리를 들었던 자만 그것에 대해 언급하라. 내게서 들은 것만 말하고; 풍문에 떠도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3.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 **예수**께서는, “물과 포도주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했다.

그들은 두 주간씩 번갈아 어부로 일한 이 5내지 6개월의 기간 내내 훌륭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하여 두 주간 어부로 일하고, 그다음 두 주간 천국을 위한 전도 업무를 하기 위해 일터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

일반인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봉사에 경탄했다. 랍비들은, 무식한 자는 신앙심이 깊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그러나 **예수**의 사도들은, 신앙심 깊고 또한 의로웠으나; 랍비의 학문과 세상 지혜 대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무시하고자 했다.

유대인이 가르쳤던 소위 선행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값으로 **예수**께서 요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변화--곧 새로 태어남--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요구 사항이 신앙임을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거든--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었다. **예수**께서는, “신앙은, 현존하고 완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열려있는 문”이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어떤 선지자처럼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추구하기보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들에게 내재하는 사랑과 구원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만족하고 확신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썼다.

as treasurer of the twelve, divided the apostolic funds into six equal portions, funds for the care of dependent families having been already provided. And then near the middle of August, in the year A.D. 26, they went forth two and two to the fields of work assigned by Andrew. The first two weeks Jesus went out with Andrew and Peter, the second two weeks with James and John, and so on with the other couples in the order of their choosing. In this way he was able to go out at least once with each couple before he called them together for the beginning of their public ministry.

138:8.2 (1545.3) Jesus taught them to preach the forgiveness of sin through *faith in God* without penance or sacrifice, and that the Father in heaven loves all his children with the same eternal love. He enjoined his apostles to refrain from discussing:

138:8.3 (1545.4) 1. The work and imprisonment of John the Baptist.

138:8.4 (1545.5) 2. The voice at the baptism. Said Jesus: “Only those who heard the voice may refer to it. Speak only that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speak not hearsay.”

138:8.5 (1545.6) 3.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at Cana. Jesus seriously charged them, saying, “Tell no man about the water and the wine.”

138:8.6 (1545.7) They had wonderful times throughout these five or six months during which they worked as fishermen every alternate two weeks, thereby earning enough money to support themselves in the field for each succeeding two weeks of missionary work for the kingdom.

138:8.7 (1545.8) The common people marveled at the teaching and ministry of Jesus and his apostles. The rabbis had long taught the Jews that the ignorant could not be pious or righteous. But Jesus' apostles were both pious and righteous; yet they were cheerfully ignorant of much of the learning of the rabbis and the wisdom of the world.

138:8.8 (1545.9) Jesus made plain to his apost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pentance of so-called good works as taught by the Jews and the change of mind by faith — the new birth — which he required as the price of admission to the kingdom. He taught his apostles that *faith* was the only requisite to entering the Father's kingdom. John had taught them “repentance —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Jesus taught, “Faith is the open door for entering into the present, perfect, and eternal love of God.” Jesus did not speak like a prophet, one who comes to declare the word of God. He seemed to speak of himself as one having authority. Jesus sought to divert their minds from miracle seeking to the finding of a real and personal experience in the satisfaction and assurance of the indwelling of God's spirit of love

제자들은, 만나는 모든 인간마다 **주님**께서 심오한 존경과 동정심을 갖고 대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으며, 온갖 종류의 남녀와 아이들에게 쏟는 이런 한결같고 변함없는 **예수**의 배려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진지한 토론 중에 있더라도, 육체와 혼의 짐을 지고 지나가는 한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갈 것이다. 그는 중간에 끼어드는 한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라면, 사도들과 심각한 회담 중이라도 그것을 중단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연히 자기 눈앞에 있게 된 한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했다. 그는 선생님이자 교사였지만, 그 이상이었다--그는 또한 친구이자 이웃이었고, 이해심 많은 동무였다.

예수의 공적인 가르침이 주로 비유와 짧은 이야기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는 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사도들을 가르쳤다. 추후 대중 설교 도중에도, 그는 진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멈추고자 했다.

사도들은 여자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곧 익숙해졌으며; 그는 천국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9. 5개월의 시험

고기잡이와 개인 업무를 번갈아 하던 이런 단조로운 기간이, 열두 사도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체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견뎠다. 그들은, 불평, 의심, 및 일시적 불만족을 간직한 채, 여전히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맹세를 지켰다. 이런 시험 기간에 **예수**와 함께 지낸 그들의 개인적 교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로 하여금 재판과 십자가형의 암울한 기간 중에도, **예수**께 충성하고 진실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존경하는 선생님을 실제로 쉽게 저버릴 수 없었다.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사도들의 마음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특별한 인간 감정이--곧 **우정-충성**이라는 최상의 감상(感想)이--힘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이성과 판단과 논리는 잊혀졌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이 다섯 달은, 사도 각자에게, **예수**를 온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훌륭한 교훈이나 굉장한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적 감상이, 부활이 있는 후 천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함께 붙잡아뒀다.

조용히 활동한 이 여러 달이 사도들에게는 큰

and saving grace.

138:8.9 (1545.10) The disciples early learned that the Master had a profound respect and sympathetic regard for every human being he met, and they were tremendously impressed by this uniform and unvarying consideration which he so consistently gave to all sorts of men, women, and children. He would pause in the midst of a profound discourse that he might go out in the road to speak good cheer to a passing woman laden with her burden of body and soul. He would interrupt a serious conference with his apostles to fraternize with an intruding child. Nothing ever seemed so important to Jesus as the *individual human* who chanced to be in his immediate presence. He was master and teacher, but he was more — he was also a friend and neighbor, an understanding comrade.

138:8.10 (1546.1) Though Jesus' public teaching mainly consisted in parables and short discourses, he invariably taught his apostles by questions and answers. He would always pause to answer sincere questions during his later public discourses.

138:8.11 (1546.2) The apostles were at first shocked by, but early became accustomed to, Jesus' treatment of women; he made it very clear to them that women were to be accorded equal rights with men in the kingdom.

9. FIVE MONTHS OF TESTING

138:9.1 (1546.3) This somewhat monotonous period of alternate fishing and personal work proved to be a grueling experience for the twelve apostles, but they endured the test. With all of their grumbings, doubts, and transient dissatisfactions they remained true to their vows of devotion and loyalty to the Master. It was their personal association with Jesus during these months of testing that so endeared him to them that they all (save Judas Iscariot) remained loyal and true to him even in the dark hour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Real men simply could not actually desert a revered teacher who had lived so close to them and had been so devoted to them as had Jesus. Through the dark hours of the Master's death, in the hearts of these apostles all reason, judgment, and logic were set aside in deference to just one extraordinary human emotion — the supreme sentiment of friendship-loyalty. These five months of work with Jesus led these apostles, each one of them, to regard him as the best *friend* he had in all the world. And it was this human sentiment, and not his superb teachings or marvelous doings, that held them together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and the renewal of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38:9.2 (1546.4) Not only were these months of quiet

시험이 됐고, 그들은 이 시험을 극복했지만, 대중 활동이 없는 이 기간은 **예수**의 가족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예수**께서 대중 활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도, (**룻**을 제외한) 그의 전 가족은 실질적으로 그를 배척했다. 그 후에 그들은 몇 번만 그와 연락했고, 그때마다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를 설득했는데, 그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거의 믿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그의 사상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와 피를 나눈 가족에게는, 그 모든 일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찼다.

사도들은 자신의 개인 업무를, **가버나움, 벳새다, 졸리아, 고라신, 거라사, 힌보, 막달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헴, 요타파타, 라마, 사페드, 기스카라, 가다라, 및 아빌라** 등지에서 수행했다. 그들은 이런 도시들 외에도, 시골과 여러 마을에서 일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열두 사도는 각자의 가족 부양을 위해 상당히 충분한 방책을 강구할 정도로 일했다. 대부분의 사도는 결혼했고, 더러는 자녀도 있었지만, 사도들의 기금에서 적은 양의 어떤 도움과 함께, 그들의 식구 부양 대책을 이미 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다.

10. 열두 사도의 조직

사도들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조직을 갖췄다:

1. 맨 처음 선택된 **안드레**가 열두 사도의 의장 및 총책임자로 임명됐다.

2.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개인 동무로 임명됐다.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께 시중들었고, 그의 육신적이거나 기타 잡다한 필요 사항을 맡았으며,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비롭게 교류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 그와 함께 됐다.

3. **빌립**은 전체 모임의 사무장(事務長)이 됐다. 음식을 제공하고 방문객 또는 가끔 많은 청중 무리의 음식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4. **나다니엘**은 열두 사도의 가족 부양을 책임졌다. 그는 각 사도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청구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주 기금을 보냈다.

5. **마태**는 사도 단체의 재무(財務) 책임자였다.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자금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공동 부양을 위한 기금이 더 들어오지 않거나, 모임을 유지

work a great test to the apostles, a test which they survived, but this season of public inactivity was a great trial to Jesus' family. By the time Jesus was prepared to launch forth on his public work, his entire family (except Ruth) had practically deserted him. On only a few occasions did they attempt to make subsequent contact with him, and then it was to persuade him to return home with them, for they came near to believing that he was beside himself. They simply could not fathom his philosophy nor grasp his teaching; it was all too much for those of his own flesh and blood.

138:9.3 (1546.5) The apostles carried on their personal work in Capernaum, Bethsaida-Julias, Chorazin, Gerasa, Hippos, Magdala, Cana, Bethlehem of Galilee, Jotapata, Ramah, Safed, Gischala, Gadara, and Abila. Besides these towns they labored in many villages as well as in the countryside.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twelve had worked out fairly satisfactory plans for the care of their respective families. Most of the apostles were married, some had several children, but they had made such arrangements for the support of their home folks that, with some little assistance from the apostolic funds, they could devote their entire energies to the Master's work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the financial welfare of their families.

10. ORGANIZATION OF THE TWELVE

138:10.1 (1547.1) The apostles early organized themselves in the following manner:

138:10.2 (1547.2) 1. Andrew, the first chosen apostle, was designated chairman and director general of the twelve.

138:10.3 (1547.3) 2. Peter, James, and John were appointed personal companions of Jesus. They were to attend him day and night, to minister to his physical and sundry needs, and to accompany him on those night vigils of prayer and mysterious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138:10.4 (1547.4) 3. Philip was made steward of the group. It was his duty to provide food and to see that visitors, and even the multitude of listeners at times, had something to eat.

138:10.5 (1547.5) 4. Nathaniel watched over the needs of the families of the twelve. He received regular reports as to the requirements of each apostle's family and, making requisition on Judas, the treasurer, would send funds each week to those in need.

138:10.6 (1547.6) 5. Matthew was the fiscal agent of the apostolic corps. It was his duty to see that the budget was balanced, the treasury replenished. If the funds for mutual support were not forthcoming, if donations sufficient to maintain the party were

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면, 고기잡이를 위해 열두 사도를 얼마동안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마태**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대중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회계에게 항상 맡겼다.

6. **도마**는 일정을 맡아보는 책임자였다. 그는 숙소를 정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행 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했다.

7.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대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의 과제는, 전도하는 동안 인파 가운데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보조 안내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8. **열심당 시몬**은 오락과 놀이를 담당했다. 그는 수요일 계획표를 관리해서, 그날에는 사도들이 몇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일을 맡았다.

9. **가롯 유다**는 회계로 지명됐다. 그는 돈주머니를 보관했다. 모든 경비에 드는 돈을 그가 지불했고 장부를 관리했다. 그는 주 단위로 **마태**에게 예산안을 짜냈고, **안드레**에게 매 주 보고했다. **유다**는 **안드레**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서 돈을 지출했다.

초기에 조직된 때부터, 배반자인 **유다**의 이탈로 말미암아 재_조직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열두 사도는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주님**과 제자_사도들은,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까지,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일을 계속했으며, 이날 **예수**께서 그들을 전부 불러 모아, 천국 대사 및 천국의 기쁜 소식 전파자로서 정식으로 임명했다. 그 후로 곧, 첫 대중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not received, Matthew was empowered to order the twelve back to their nets for a season. But this was never necessary after they began their public work; he always had sufficient funds in the treasurer's hands to finance their activities.

138:10.7 (1547.7) 6. Thomas was manager of the itinerary. It devolved upon him to arrange lodgings and in a general way select places for teaching and preaching, thereby insuring a smooth and expeditious travel schedule.

138:10.8 (1547.8) 7. James and Judas the twin sons of Alpheus were assigned to the management of the multitudes. It was their task to deputize a sufficient number of assistant ushers to enable them to maintain order among the crowds during the preaching.

138:10.9 (1547.9) 8. Simon Zelotes was given charge of recreation and play. He managed the Wednesday programs and also sought to provide for a few hours of relaxation and diversion each day.

138:10.10 (1547.10) 9. Judas Iscariot was appointed treasurer. He carried the bag. He paid all expenses and kept the books. He made budget estimates for Matthew from week to week and also made weekly reports to Andrew. Judas paid out funds on Andrew's authorization.

138:10.11 (1547.11) In this way the twelve functioned from their early organization up to the time of the reorganization made necessary by the desertion of Judas, the betrayer. The Master and his disciple-apostles went on in this simple manner until Sunday, January 12, A.D. 27, when he called them together and formally ordained them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preachers of its glad tidings. And soon thereafter they prepared to start for Jerusalem and Judea on their first public preaching tour.

제 139편. 열두 사도

⇨ 138

유란시아 책

140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39편
열두 사도

섹션

소개

1. 안드레, 처음 선택된 사도
2. 시몬 베드로
3. 야고보 세베대
4. 요한 세베대
5. 호기심 많은 빌립
6. 정직한 나다니엘
7. 레위 마태
8. 도마 디두모
9. -- 10.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11. 열심당 시몬
12. 가롯 유다

PAPER 139

THE TWELVE APOSTLES

SECTIONS

Introduction

1. Andrew, the First Chosen
2. Simon Peter
3. James Zebedee
4. John Zebedee
5. Philip the Curious
6. Honest Nathaniel
7. Matthew Levi
8. Thomas Didymus
- 9 and 10. James and Judas Alpheus
11. Simon the Zealot
12. Judas Iscariot

소개

예수께서 사도들의 희망을 반복해서 산산조각내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높아지려는 모든 야망을 갈기갈기 찢었음에도, 한 사람만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 세상 생애가 매력 있고 의로움을 웅변하듯이 증언한다.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하늘 나라에 대하여 배웠고, **예수**께서는 그들로부터 사람들의 나라, 즉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다른 세계들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이 열두 사람은, 다양한 유형의 인간 기질을 대표했고, 학교교육으로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100년 전에 **갈릴리** 이방 주민을 강제로 개종시킨 결과로, 이 **갈릴리** 어부 가운데 다수는 이방인의 핏줄을 상당히 지니고 있었다.

사도들 전체가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알패오** 쌍둥이를

INTRODUCTION

139:0.1 (1548.1) IT IS an eloquent testimony to the charm and righteousness of Jesus' earth life that, although he repeatedly dashed to pieces the hopes of his apostles and tore to shreds their every ambition for personal exaltation, only one deserted him.

139:0.2 (1548.2) The apostles learned from Jesu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Jesus learned much from them about the kingdom of men, human nature as it lives on Urantia and on the other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se twelve men represented many different types of human temperament, and they had not been made *alike* by schooling. Many of these Galilean fishermen carried heavy strains of gentile blood as a result of the forcible conversion of the gentile population of Galilee one hundred years previously.

139:0.3 (1548.3) Do not make the mistake of regarding the apostles as being altogether ignorant and

제외한 그들 모두는 회당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히브리** 성서에 대해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지식 대부분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훈련돼 있었다. 일곱 명이 **가버나움** 회당 학교를 졸업했고, **갈릴리** 전체에서 더 좋은 **유대인** 학교는 없었다.

이 천국 사자{使者}들을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너희의 기록들이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랍비의 학문에 대해 무지하고, 율법학자의 **성서** 해석 방법을 훈련받지 않은 평신도였다는 관념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소위 고등교육이 결여돼 있었다. 오늘날로 볼 때, 그들은 확실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회 집단에서는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그들 모두, 경직되고 편견에 치우친,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 후에,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각자 체험으로 터득했다.

1. 안드레, 처음 선택된 사도

천국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인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섯 명의 아이--곧 본인, 남동생 **시몬**, 그리고 세 명의 여동생--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았다. 이미 고인{故人}이 된 그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고기잡이 항구인 **벳새다**에서 고기를 말려 파는 일에 종사하는 **세베대**의 동업자였다. **안드레**는 사도가 됐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결혼한 동생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둘 다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였다.

안드레는 서기 26년에 사도로 뽑혔으며, **예수**보다 한 살 많은 서른세 살이었고 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훌륭한 선조를 둔 혈통에서 태어났고,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유능했다. 웅변술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동료가 가질만한 역량을 거의 다 소유했다. **예수**께서 **안드레**에게는 애칭, 즉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지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곧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듯이, 또한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으로 **안드레**를 불렀다.

안드레는 훌륭한 조직가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경영자로서 더 훌륭했다. 그는 네 명의 사도로 구성된 핵심 요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예수**께서 그를 사도 집단의 우두머리로 임명했으므로, 다른 세 사람이 **주님**과 매우 긴밀하게 교류하는 특권을 누리는 동안, 그는 형제들과 함께 근무해야 했다. **안드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단체의 책임자로 남아 있었다.

안드레가 효과적인 설교자였던 적은 없었지만, 개인을 상대로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선택된 사도로서 즉시 동생 **시몬**을 **예**

unlearned. All of them, except the Alpheus twins, were graduates of the synagogue schools, having been thoroughly trained in the Hebrew scriptures and in much of the current knowledge of that day. Seven were graduates of the Capernaum synagogue schools, and there were no better Jewish schools in all Galilee.

139:0.4 (1548.4) When your records refer to these messengers of the kingdom as being “ignorant and unlearned,” it was intended to convey the idea that they were laymen, unlearned in the lore of the rabbis and untrained in the methods of rabbinical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They were lacking in so-called higher education. In modern times they would certainly be considered uneducated, and in some circles of society even uncultured. One thing is certain: They had not all been put through the same rigid and stereotyped educational curriculum. From adolescence on they had enjoyed separate experiences of learning how to live.

1. ANDREW, THE FIRST CHOSEN

139:1.1 (1548.5) Andrew, chairman of the apostolic corps of the kingdom, was born in Capernaum. He was the oldest child in a family of five — himself, his brother Simon, and three sisters. His father, now dead, had been a partner of Zebedee in the fish-drying business at Bethsaida, the fishing harbor of Capernaum. When he became an apostle, Andrew was unmarried but made his home with his married brother, Simon Peter. Both were fishermen and partners of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139:1.2 (1548.6) In A.D. 26, the year he was chosen as an apostle, Andrew was 33, a full year older than Jesus and the oldest of the apostles. He sprang from an excellent line of ancestors and was the ablest man of the twelve. Excepting oratory, he was the peer of his associates in almost every imaginable ability. Jesus never gave Andrew a nickname, a fraternal designation. But even as the apostles soon began to call Jesus Master, so they also designated Andrew by a term the equivalent of Chief.

139:1.3 (1549.1) Andrew was a good organizer but a better administrator. He was one of the inner circle of four apostles, but his appointment by Jesus as the head of the apostolic group made it necessary for him to remain on duty with his brethren while the other three enjoyed very close communion with the Master. To the very end Andrew remained dean of the apostolic corps.

139:1.4 (1549.2) Although Andrew was never an effective preacher, he was an efficient personal worker, being the pioneer missionary of the kingdom in that, as the first chosen apostle, he

수께 데려왔다는 점에서, 천국의 선구적인 선교사 역할을 했으며, **시몬**은 나중에 가장 훌륭한 천국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안드레**는, 열두 사도를 천국 사자로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개인 업무 계획표를 활용하는 **예수**의 방침에 최고의 후원자였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사적{私的}으로 가르칠 때든지, 군중에게 전도할 때든지, **안드레**는 대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능통했으며; 이해심 많은 실행가였고 능률적인 경영자였다. 그는 자기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예수**께 가져갔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알게 된 모든 문제를 신속히 결정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품과 기질에서 매우 달랐지만, 훌륭하게 같이 지냈다는 점은 그들에게 명예가 되도록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웅변술을 전혀 질투하지 않았다. 연장자인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제수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충심에서 영향력 미치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역량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 2천 명의 혼이 천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가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뒤흔기쁘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다: “형님이 나를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주님** 옆에 꾸준히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통례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형제간에도 함께 평화롭게 살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유명해졌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불리면서 나머지 생애를 지내는 것이, 형 **안드레**를 한 번도 초조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전체 사도들 중에서, **안드레**가 사람을 가장 잘 판단했다. 회계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때에도, 그는 **가롯 유다**의 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안드레**의 위대한 천국 봉사는, 복음 선포를 위해 내보낼 첫 선교사들을 선정하는 문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충고한 것, 또한 천국을 경영하는 직무의 조직에 대해 이 초기 지도자들에게 조언한 것이었다. **안드레**는 젊은이들의 숨겨진 자원과 잠재된 재주를 발견하는 데 큰 은사를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 높은 곳으로 상승한 후에 곧바로, **안드레**는 떠나간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운데 많은 것을 손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죽은 후에, 이 개인기록의 다른 사본들이 만

immediately brought to Jesus his brother, Simon, who subsequently became one of the greatest preachers of the kingdom. Andrew was the chief supporter of Jesus' policy of utilizing the program of personal work as a means of training the twelve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139:1.5 (1549.3) Whether Jesus privately taught the apostles or preached to the multitude, Andrew was usually conversant with what was going on; he was an understanding executive and an efficient administrator. He rendered a prompt decision on every matter brought to his notice unless he deemed the problem one beyond the domain of his authority, in which event he would take it straight to Jesus.

139:1.6 (1549.4) Andrew and Peter were very unlike in character and temperament, but it must be recorded everlastingly to their credit that they got along together splendidly. Andrew was never jealous of Peter's oratorical ability. Not often will an older man of Andrew's type be observed exerting such a profound influence over a younger and talented brother. Andrew and Peter never seemed to be in the least jealous of each other's abilities or achievements. Late on the evening of the day of Pentecost, when, largely through the energetic and inspiring preaching of Peter, two thousand souls were added to the kingdom, Andrew said to his brother: "I could not do that, but I am glad I have a brother who could." To which Peter replied: "And but for your bringing me to the Master and by your steadfastness *keeping* me with him, I should not have been here to do this." Andrew and Peter were the exceptions to the rule, proving that even brothers can live together peaceably and work together effectively.

139:1.7 (1549.5) After Pentecost Peter was famous, but it never irritated the older Andrew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being introduced as "Simon Peter's brother."

139:1.8 (1549.6) Of all the apostles, Andrew was the best judge of men. He knew that trouble was brewing in the heart of Judas Iscariot even when none of the others suspected that anything was wrong with their treasurer; but he told none of them his fears. Andrew's great service to the kingdom was in advising Peter, James, and John concerning the choice of the first missionaries who were sent out to proclaim the gospel, and also in counseling these early leaders about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kingdom. Andrew had a great gift for discovering the hidden resources and latent talents of young people.

139:1.9 (1549.7) Very soon after Jesus' ascension on high, Andrew began the writing of a personal record of many of the sayings and doings of his departed Master. After Andrew's death other

들어졌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선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회람{回覽}됐다. **안드레**의 이런 비공식 기록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애에 관하여 사람들이 상당히 일관적인 이야기로 만들 때까지, 훗날에 편집되고, 개정되고, 바뀌고, 첨부됐다. 이런 바뀌고 개정된 약간의 사본들 가운데 마지막 사본은, 열두 사도 중에서 처음 선택된 그 사도가 원본을 쓴 후 1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불에 타버렸다.

안드레는, 명석한 통찰력, 논리적 사고, 확고한 판단력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중요한 성격상 장점은 비할 바 없는 안정감이었다. 그의 기질의 단점은 열정이 부족한 것이었으며; 현명하게 칭찬하여 동역자들을 북돋아 주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의 가치 있는 업적에 대해 이렇게 칭찬에 인색했던 것은, 아첨이나 위선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안드레**는, 다재다능하고, 침착하며, 자립적이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공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사도들 모두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열두 사도 각자가 그에게 이끌린 것은, 각 사도에게 특별히 호감을 주는 어떤 특정한 인격 특징 때문이었음 사실이다. **안드레**는, **예수**의 일관적인 신중함과 변치 않는 위엄 때문에 그를 존경했다. 일단 **예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됐으며; 진정으로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기 원했다.

후일의 박해로 인해 결국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을 때, **안드레**는,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지나 여행했고, 수천 명을 천국으로 인도한 후에, 결국 **아가야의 파트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만 이틀이나 걸렸고, 그는 이런 비극적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효율적으로 선포하기를 계속했다.

2. 시몬 베드로

사도로 가입했을 때, **시몬**은 서른 살이었다. 결혼해서 세 아이가 있었고, **가버나움** 가까이에 있는 **벳새다**에서 살았다. 그는, 형 **안드레**, 그리고 자기 장모와 함께 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 다 **세베대**의 아들과 동업하는 어부였다.

주님은, **안드레**가 **시몬**을 둘째 사도로 소개하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으며; 그것은 일종의 별명이었다. **시몬**은 모든 친구에게 엉뚱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 별명에, 나중에는 **예수**께서 새롭고 뜻 깊은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 사실이다.

copies of this private record were made and circulated freely among the early teachers of the Christian church. These informal notes of Andrew's were subsequently edited, amended, altered, and added to until they made up a fairly consecutive narrative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The last of these few altered and amended copies was destroyed by fire at Alexandria about one hundred years after the original was written by the first chosen of the twelve apostles.

139:1.10 (1550.1) Andrew was a man of clear insight, logical thought, and firm decision, whose great strength of character consisted in his superb stability. His temperamental handicap was his lack of enthusiasm; he many times failed to encourage his associates by judicious commendation. And this reticence to praise the worthy accomplishments of his friends grew out of his abhorrence of flattery and insincerity. Andrew was one of those all-round, even-tempered, self-made, and successful men of modest affairs.

139:1.11 (1550.2) Every one of the apostles loved Jesus, but it remains true that each of the twelve was drawn toward him because of some certain trait of personality which made a special appeal to the individual apostle. Andrew admired Jesus because of his consistent sincerity, his unaffected dignity. When men once knew Jesus, they were possessed with the urge to share him with their friends; they really wanted all the world to know him.

139:1.12 (1550.3) When the later persecutions finally scattered the apostles from Jerusalem, Andrew journeyed through Armenia, Asia Minor, and Macedonia and, after bringing many thousands into the kingdom, was finally apprehended and crucified in Patrae in Achaia. It was two full days before this robust man expired on the cross, and throughout these tragic hours he continued effectively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of the salv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2. SIMON PETER

139:2.1 (1550.4) When Simon joined the apostles, he was thirty years of age. He was married, had three children, and lived at Bethsaida, near Capernaum. His brother, Andrew, and his wife's mother lived with him. Both Peter and Andrew were fisher partners of the sons of Zebedee.

139:2.2 (1550.5) The Master had known Simon for some time before Andrew presented him as the second of the apostles. When Jesus gave Simon the name Peter, he did it with a smile; it was to be a sort of nickname. Simon was well known to all his friends as an erratic and impulsive fellow. True, later on, Jesus did attach a new and significant import to this lightly bestowed nickname.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격한 감정에 제멋대로 빠지면서 자라왔으며; 생각 없이 계속 말을 내뱉었으므로, 빈번하게 곤경에 처했다. 이런 종류의 경솔함은, 친구와 동역자들 모두에게도 끊임없는 곤경을 일으켰고, **주님**으로부터 가벼운 꾸중을 많이 듣게 된 원인이었다. 생각 없이 하는 그의 말로 인해 더 많은 곤경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많은 계획과 개요를 공공연히 털어놓기 전에, 형 **안드레**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매우 일찍부터 터득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유창한 웅변가였다. 또한 그는 천부적이고 영감 주는 지도자였고 생각이 빨랐지만, 깊이 추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의 질문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질문했고, 대부분의 질문이 선하고 적절했지만, 다수는 생각 없이 나온 어리석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심지(心地)가 깊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을 잘 알았다. 따라서 그는 결정을 빨리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를 보고 놀라서 떠드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존경하게 됐던 하나의 특징은, 그의 탁월한 온화함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관용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일곱 번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못했다.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마음에도 없이 **예수**를 부인한 직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날들 동안, 그는 **주님**의 용서하는 성품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인상을 많이 회상했다.

시몬 베드로는 비참할 정도로 번덕스러웠는데;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갑자기 옮겨가곤 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께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다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온 몸을 씻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국 **베드로**의 약점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용기와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가장 희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우애였다. **베드로**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타오르는 격렬한 헌신에도, 너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주**이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한 여중이 자기를 놀리도록 내버려뒀다. **베드로**는 박해나 다른 형태의 직접 공격은 잘 견뎠지만, 조롱 앞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위축됐다. 그는 정면 공격 앞에서는 용감한 병사였으나, 후면 습격으로 놀랄 때에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인** 가운데서 **빌립**의 업무와, 이방인 가운데서 **바울**의 업무에 대해, **예수**의 사도들 중에서 맨 먼저 두둔하고 나섰는데; 나중에

139:2.3 (1550.6) Simon Peter was a man of impulse, an optimist. He had grown up permitting himself freely to indulge strong feelings; he was constantly getting into difficulties because he persisted in speaking without thinking. This sort of thoughtlessness also made incessant trouble for all of his friends and associates and was the cause of his receiving many mild rebukes from his Master. The only reason Peter did not get into more trouble because of his thoughtless speaking was that he very early learned to talk over many of his plans and schemes with his brother, Andrew, before he ventured to make public proposals.

139:2.4 (1550.7) Peter was a fluent speaker, eloquent and dramatic. He was also a natural and inspirational leader of men, a quick thinker but not a deep reasoner. He asked many questions, more than all the apostles put together, and while the majority of these questions were good and relevant, many of them were thoughtless and foolish. Peter did not have a deep mind, but he knew his mind fairly well. He was therefore a man of quick decision and sudden action. While others talked in their astonishment at seeing Jesus on the beach, Peter jumped in and swam ashore to meet the Master.

139:2.5 (1551.1) The one trait which Peter most admired in Jesus was his supernal tenderness. Peter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Jesus' forbearance. He never forgot the lesson about forgiving the wrongdoer, not only seven times but seventy times and seven. He thought much about these impressions of the Master's forgiving character during those dark and dismal days immediately following his thoughtless and unintended denial of Jesus in the high priest's courtyard.

139:2.6 (1551.2) Simon Peter was distressingly vacillating; he would suddenly swing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First he refused to let Jesus wash his feet and then, on hearing the Master's reply, begged to be washed all over. But, after all, Jesus knew that Peter's faults were of the head and not of the heart. He was one of the most inexplicable combinations of courage and cowardice that ever lived on earth. His great strength of character was loyalty, friendship. Peter really and truly loved Jesus. And yet despite this towering strength of devotion he was so unstable and inconstant that he permitted a servant girl to tease him into denying his Lord and Master. Peter could withstand persecution and any other form of direct assault, but he withered and shrank before ridicule. He was a brave soldier when facing a frontal attack, but he was a fear-cringing coward when surprised with an assault from the rear.

139:2.7 (1551.3) Peter was the first of Jesus' apostles to come forward to defend the work of Philip among the Samaritans and Paul among the

는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유대교전향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태도를 바꿔 이방인에게서 잠시 떠나 있었는데, **바울**로부터 대담한 비난을 받게 됐을 뿐이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혼합된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했고, 또한 --**유다**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심한 공상가는 아니었지만, 환희의 구름을 타고 극적으로 몰입하는 열정에 빠졌다가, 평범하고 단조로운 세상적인 현실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

예수를 따르면서,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앞에서 이끌던가 아니면 뒤에 처졌다--“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러나 그는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으며, **바울**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동안 다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이 천국을 설립했고, 천국 사자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냈다.

그는 **주님**을 경솔하게 부인한 후에 자아를 발견했고, **안드레**의 동정심 있고 이해심 많은 안내를 받아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섰으며, 한편 사도들은 십자가형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려고 기다렸다. **예수**께 용서받았음을 완전히 확신했을 때, **주님**의 양떼에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불이 그의 혼 속에서 그토록 밝게 타올라서,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수천 명에게 구원의 큰 빛이 됐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가운데서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고린도**까지 모든 교회를 방문하면서 널리 여행했다. 그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보살피기까지 했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기질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신학에서도 서로 많이 달랐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했다.

베드로의 방식과 가르침 중에서 얼마큼은, **누가** 기록한 설교와 **마가복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박력 있는 태도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그의 편지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적어도 **바울**의 제자가 나중에 그 편지를 고치기 전에는 정말로 그랬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결국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유대인 메시아**였다고 **유대인**에게 확신시키려고 애쓰는 과오를 계속 범했다. 죽는 날까지, **시몬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개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개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즉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라는 개념,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베드로의 아내는 매우 능력 있는 여자였다.

gentiles; yet later on at Antioch he reversed himself when confronted by ridiculing Judaizers, temporarily withdrawing from the gentiles only to bring down upon his head the fearless denunciation of Paul.

139:2.8 (1551.4) He was the first one of the apostles to make wholehearted confession of Jesus' combined humanity and divinity and the first — save Judas — to deny him. Peter was not so much of a dreamer, but he disliked to descend from the clouds of ecstasy and the enthusiasm of dramatic indulgence to the plain and matter-of-fact world of reality.

139:2.9 (1551.5) In following Jesus, literally and figuratively, he was either leading the procession or else trailing behind — “following afar off.” But he was the outstanding preacher of the twelve; he did more than any other one man, aside from Paul,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send its messengers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in one generation.

139:2.10 (1551.6) After his rash denials of the Master he found himself, and with Andrew's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guidance he again led the way back to the fish nets while the apostles tarried to find out what was to happen after the crucifixion. When he was fully assured that Jesus had forgiven him and knew he had been received back into the Master's fold, the fires of the kingdom burned so brightly within his soul that he became a great and saving light to thousands who sat in darkness.

139:2.11 (1551.7) After leaving Jerusalem and before Paul became the leading spirit among the gentile Christian churches, Peter traveled extensively, visiting all the churches from Babylon to Corinth. He even visited and ministered to many of the churches which had been raised up by Paul. Although Peter and Paul differed much in temperament and education, even in theology, they worked together harmoniously for the upbuilding of the churches during their later years.

139:2.12 (1552.1) Something of Peter's style and teaching is shown in the sermons partially recorded by Luke and in the Gospel of Mark. His vigorous style was better shown in his letter known as the First Epistle of Peter; at least this was true before it was subsequently altered by a disciple of Paul.

139:2.13 (1552.2) But Peter persisted in making the mistake of trying to convince the Jews that Jesus was, after all, really and truly the Jewish Messiah. Right up to the day of his death, Simon Peter continued to suffer confusion in his mind between the concepts of Jesus as the Jewish Messiah, Christ as the world's redeemer, and the Son of Man as the revelation of God, the loving Father of all mankind.

139:2.14 (1552.3) Peter's wife was a very able woman.

여러 해 동안 여자 단체 회원으로서 일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자, 그의 선교여행은 물론 교회 방문에도 동행했다. 그리고 저명한 남편이 목숨을 바치던 날, 그 아내도 **로마**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졌다.

이렇게 **예수**와 친숙했던 사람, 핵심 집단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권세와 영광으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갔으며; 그 역시 그의 **주님**처럼--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고 그를 체포한 자가 알려줬을 때, 그는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박혔다.

3. 야고보 세베대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우뢰{雨雷}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두 사도 중에 형인 **야고보**는 사도가 됐을 때 서른 살이었다. 그는 결혼해서 네 아이가 있었고, **가버나움** 근교에 있는 **벳새다**에서 부모의 집 가까이에 살았다. 그는 어부였는데, 동생 **요한**과 함께, 그리고 **안드레** 및 **시몬**과 공동으로 생업에 힘썼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이점{利點}을 갖고 있었다.

유능한 이 사도는, 상반되는 기질을 소유했으며; 실제로 두 가지 본성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 다 격한 감정에 자극받았다. 분노가 일단 차오르면 현저하게 과격했다. 성질이 한번 자극되면 불같은 성질을 나타냈고, 폭풍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의로움의 분개였다고 평계를 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언제나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주기적인 분노 표출을 제외하면, **야고보**의 인간성은 **안드레**의 인간성과 비슷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안드레**의 식별력이나 통찰력은 갖지 못했지만, **안드레**보다 훨씬 우월한 대중 연설가였다. **마태**가 없었다면, **야고보**가 열두 사도 중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대중 웅변가였다.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도 기분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는 조용하고 과묵하다가 다음 날에는 말 많은 수다쟁이가 되곤 했다. 그는 대개 **예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 했지만, 열두 사도 중에서는 한 번에 며칠씩 가장 말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런 한동안의 기묘한 침묵이었다.

야고보의 인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 가지 주장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역량이었다. 열두 사도 전체 가운데서, 그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 취지와 의미를 가장 근접되게 파악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주님**께서 의미하는 바를 더디게 납득

For years she labored acceptably as a member of the women's corps, and when Peter was driven out of Jerusalem, she accompanied him upon all his journeys to the churches as well as on all his missionary excursions. And the day her illustrious husband yielded up his life, she was thrown to the wild beasts in the arena at Rome.

139:2.15 (1552.4) And so this man Peter, an intimate of Jesus, one of the inner circle, went forth from Jerusalem proclaiming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with power and glory until the fullness of his ministry had been accomplished; and he regarded himself as the recipient of high honors when his captors informed him that he must die as his Master had died — on the cross. And thus was Simon Peter crucified in Rome.

3. JAMES ZEBEDEE

139:3.1 (1552.5) James, the older of the two apostle sons of Zebedee, whom Jesus nicknamed “sons of thunder,”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an apostle. He was married, had four children, and lived near his parents in the outskirts of Capernaum, Bethsaida. He was a fisherman, plying his calling in company with his younger brother John and in association with Andrew and Simon. James and his brother John enjoyed the advantage of having known Jesus longer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139:3.2 (1552.6) This able apostle was a temperamental contradiction; he seemed really to possess two natures, both of which were actuated by strong feelings. He was particularly vehement when his indignation was once fully aroused. He had a fiery temper when once it was adequately provoked, and when the storm was over, he was always wont to justify and excuse his anger under the pretense that it was wholly a manifestation of righteous indignation. Except for these periodic upheavals of wrath, James's personality was much like that of Andrew. He did not have Andrew's discretion or insight into human nature, but he was a much better public speaker. Next to Peter, unless it was Matthew, James was the best public orator among the twelve.

139:3.3 (1552.7) Though James was in no sense moody, he could be quiet and taciturn one day and a very good talker and storyteller the next. He usually talked freely with Jesus, but among the twelve, for days at a time he was the silent man. His one great weakness was these spells of unaccountable silence.

139:3.4 (1552.8) The outstanding feature of James's personality was his ability to see all sides of a proposition. Of all the twelve, he came the nearest to grasping the real import and significance of Jesus' teaching. He, too, was slow at first to

했지만, 그들이 훈련을 모두 마치기 전에, 그는 **예수**의 메시지에 담긴 탁월한 개념을 알아들었다. **야고보**는 인간 본성의 넓은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재다능한 **안드레**, 충동적인 **베드로**, 그리고 말없는 동생 **요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있음에도 함께 일하려고 애썼는데,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 지 관찰하는 일은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만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그렇게 고집 세고 단호한 형제들에게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해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보다는 서로에게 더 많은 참을성을 베풀었다. 그들은 서로 무척 다정했으며, 언제나 좋은 놀이 동무가 됐다. **주님**께 불경스럽게 대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을 없애기 위해,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 동생 **요한**의 격렬한 기질이 많이 고쳐졌다.

야고보가 가장 감탄했던 **예수**의 특질은 **주님**의 호의적인 애정이었다. 작은 자와 위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의 이해심 많은 관심이 그에게 큰 호감을 줬다.

야고보 세베대는 균형 잡힌 사색가이자 계획가였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사도 집단에서 비교적 더 안정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격렬한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는 겸손했고, 극적이지 않았으며, 매일의 일에 충실한, 잘난 체 하지 않는 일꾼이었고, 일단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자, 특별한 보상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했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어머니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책임을 스스로 맡을 준비가 됐다고 표명했을 때, **주님**이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반란 일으킬 것으로 상상되는 그 일에 위험이 수반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 역시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 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잔을 마실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다—그는 일찍이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체험하는 첫 사도가 됐고, **주님**과 함께 잔을 마셨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는 천국의 새 싸움터에서 열두 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생명을 바쳤다. **헤롯 아그리빠**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야고보**를 특히 두려워했다. 그는 정말로 종종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신념이 자극되고 도전 받으면 용감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comprehend the Master's meaning, but ere they had finished their training, he had acquired a superior concept of Jesus' message. James was able to understand a wide range of human nature; he got along well with the versatile Andrew, the impetuous Peter, and his self-contained brother John.

139:3.5 (1553.1) Though James and John had their troubles trying to work together, it was inspiring to observe how well they got along. They did not succeed quite so well as Andrew and Peter, but they did much better than would ordinarily be expected of two brothers, especially such headstrong and determined brothers. But, strange as it may seem, these two sons of Zebedee were much more tolerant of each other than they were of strangers. They had great affection for one another; they had always been happy playmates. It was these “sons of thunder” who wanted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 Samaritans who presumed to show disrespect for their Master. But the untimely death of James greatly modified the vehement temperament of his younger brother John.

139:3.6 (1553.2) That characteristic of Jesus which James most admired was the Master's sympathetic affection. Jesus' understanding interest in the small and the great, the rich and the poor, made a great appeal to him.

139:3.7 (1553.3) James Zebedee was a well-balanced thinker and planner. Along with Andrew, he was one of the more level-headed of the apostolic group. He was a vigorous individual but was never in a hurry. He was an excellent balance wheel for Peter.

139:3.8 (1553.4) He was modest and undramatic, a daily server, an unpretentious worker, seeking no special reward when he once grasped something of the real meaning of the kingdom. And even in the story about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who asked that her sons be granted places on the right hand and the left hand of Jesu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was the mother who made this request. And when they signified that they were ready to assume such responsibiliti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y were cognizant of the dangers accompanying the Master's supposed revolt against the Roman power, and that they were also willing to pay the price. When Jesus asked if they were ready to drink the cup, they replied that they were. And as concerns James, it was literally true — he did drink the cup with the Master, seeing that he was the first of the apostles to experience martyrdom, being early put to death with the sword by Herod Agrippa. James was thus the first of the twelve to sacrifice his life upon the new battle line of the kingdom. Herod Agrippa feared James above all the other apostles. He was indeed often quiet and silent, but he was

야고보는 일생을 충실히 살았고,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아함과 불굴의 정신으로 대처했으므로, 재판과 처형장에 참석했던, 그를 비난하고 고발한 사람조차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야고보**의 처형장에서 급히 뛰쳐나가 **예수**의 제자들과 합류했다.

4. 요한 세베대

요한은 사도가 됐을 때 스물네 살이었고, 열두 사도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 그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벳새다**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어부였고, 형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 및 **베드로**와 동업했다. **요한**은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 언제나, **주님**의 가족과 관계되는 일에서 **예수**의 개인적 대리인 역할을 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줄곧 이 책임을 맡았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어렸고, **예수**의 가족 문제에서 그와 무척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희가 보기에 **예수**처럼 도량 넓은 인물인, 사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느 한 사람을 편애(偏愛)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요한**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아왔음은 물론, 그가 **예수**의 세 명의 개인 측근 보조원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화시켰다.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사도가 된 후 곧 **예수**의 개인 보조원으로 임명됐다. 열두 사도가 선택된 직후 그리고 **안드레**를 그 집단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때,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이제 네 동역자 중에서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남아 나를 보살피고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두 세 사람을 네가 선택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에 자기 다음으로 뽑힌 세 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토록 복된 봉사에 자신이 자원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위탁임무를 맡겼으므로; **예수** 곁에서 시종들도록,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즉시 임명했다.

요한 세베대는 많은 매력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그의 과도하지만 대개 잘 숨겨진 자만심이였다. **예수**와 오랫동안 교제한 기간이 그의 성품에 커다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자만심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노후에 다소 유치해지기 시작한 다음에, 이 자긍심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이제 그가 **나단**을 시켜서 현재 자기 이름으로 알

brave and determined when his convictions were aroused and challenged.

139:3.9 (1553.5) James lived his life to the full, and when the end came, he bore himself with such grace and fortitude that even his accuser and informer, who attended his trial and execution, was so touched that he rushed away from the scene of James's death to join himself to the disciples of Jesus.

4. JOHN ZEBEDEE

139:4.1 (1553.6) When he became an apostle, John was twenty-four years old and was the youngest of the twelve. He was unmarried and lived with his parents at Bethsaida; he was a fisherman and worked with his brother James in partnership with Andrew and Peter. Both before and after becoming an apostle, John functioned as the personal agent of Jesus in dealing with the Master's family, and he continued to bear this responsibility as long as Mary the mother of Jesus lived.

139:4.2 (1553.7) Since John was the youngest of the twelve and so closely associated with Jesus in his family affairs, he was very dear to the Master, but it cannot be truthfully said that he w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You would hardly suspect such a magnanimous personality as Jesus to be guilty of showing favoritism, of loving one of his apostles more than the others. The fact that John was one of the three personal aides of Jesus lent further color to this mistaken idea, not to mention that John, along with his brother James, had known Jesus longer than the others.

139:4.3 (1554.1) Peter, James, and John were assigned as personal aides to Jesus soon after they became apostles. Shortly after the selection of the twelve and at the time Jesus appointed Andrew to act as director of the group, he said to him: “And now I desire that you assign two or three of your associates to be with me and to remain by my side, to comfort me and to minister to my daily needs.” And Andrew thought best to select for this special duty the next three first-chosen apostles. He would have liked to volunteer for such a blessed service himself, but the Master had already given him his commission; so he immediately directed that Peter, James, and John attach themselves to Jesus.

139:4.4 (1554.2) John Zebedee had many lovely traits of character, but one which was not so lovely was his inordinate but usually well-concealed conceit. His long association with Jesus made many and great changes in his character. This conceit was greatly lessened, but after growing old and becoming more or less childish, this self-esteem reappeared to a certain extent, so that, when

려진 **복음서**를 쓰게 했을 때, 나이 많은 이 사도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계속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세상의 어떤 필사자보다 더 가까운 **예수**의 단짝, 즉 그가 그토록 많은 문제의 경우에 **예수**께서 택하신 그의 개인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간주할 때,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여긴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자신이야말로 **예수**께서 그토록 빈번히 일을 맡겼던 제자임을 가장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성품에서 가장 강한 특징은 그의 신빙성이었는데; 그는 신속했고 용감했으며,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유한 이 자만심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고, 사도 집단에서도 가장 어렸다. 아마 좀 버릇 없었는지 모르며; 아마 좀 지나치게 비위가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의 **요한**은, **예수**의 사도들 반열에 참가했던 스물네 살 당시의, 자기를 찬미하고 멋대로 행동하던 젊은이와는 매우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다.

요한이 가장 좋아했던 **예수**의 특질은, **주님**의 사랑과 애타심(愛他心)이었는데; 이런 특징이 그에게 큰 감명을 줬기 때문에, 그 후의 그의 전 생애는 사랑의 감정과 형제로서의 헌신으로 지배됐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랑에 관해 기록했다. 이 “우리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됐으며; **에베소**에서 이 연로한 감독이 더 이상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앉은 채 교회로 옮겨져야 했을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몇 마디 말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해 동안 그는 오직,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다.

요한은 감정이 격한 경우 외에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말은 거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기질이 많이 양순해졌고, 더 잘 통제됐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이런 성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 과묵함을 완전히 극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놀랄만한 창조적 상상력을 타고났었다.

요한에게는, 이런 조용하고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다소 웅중했고, 지나칠 정도로 참을성이 없었다. 이 면에서 그와 **야고보**는 매우 비슷했다--곧 그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서, 무례한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떨어뜨리기 원했다. **요한**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궁심과 우월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열두 사도 가운데 **요한** 뿐만은 아니었다.

요한의 생애는, **예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어머니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났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집 없이 다니는 광경으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engaged in directing Nathan in the writing of the Gospel which now bears his name, the aged apostle did not hesitate repeatedly to refer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In view of the fact that John came nearer to being the chum of Jesus than any other earth mortal, that he was his chosen personal representative in so many matters, it is not strange that he should have come to regard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ince he most certainly knew he was the disciple whom Jesus so frequently trusted.

139:4.5 (1554.3) The strongest trait in John's character was his dependability; he was prompt and courageous, faithful and devoted. His greatest weakness was this characteristic conceit. He was the youngest member of his father's family and the youngest of the apostolic group. Perhaps he was just a bit spoiled; maybe he had been humored slightly too much. But the John of after years was a very different type of person than the self-admiring and arbitrary young man who joined the ranks of Jesus' apostles when he was twenty-four.

139:4.6 (1554.4) Those characteristics of Jesus which John most appreciated were the Master's love and unselfishness; these traits made such an impression on him that his whole subsequent life became dominated by the sentiment of love and brotherly devotion. He talked about love and wrote about love. This “son of thunder” became the “apostle of love”; and at Ephesus, when the aged bishop was no longer able to stand in the pulpit and preach but had to be carried to church in a chair, and when at the close of the service he was asked to say a few words to the believers, for years his only utterance was, “My little children, love one another.”

139:4.7 (1554.5) John was a man of few words except when his temper was aroused. He thought much but said little. As he grew older, his temper became more subdued, better controlled, but he never overcame his disinclination to talk; he never fully mastered this reticence. But he was gifted with a remarkable and creative imagination.

139:4.8 (1555.1) There was another side to John that one would not expect to find in this quiet and introspective type. He was somewhat bigoted and inordinately intolerant. In this respect he and James were much alike — they both wanted to call down fire from heaven on the heads of the disrespectful Samaritans. When John encountered some strangers teaching in Jesus' name, he promptly forbade them. But he was not the only one of the twelve who was tainted with this kind of self-esteem and superiority consciousness.

139:4.9 (1555.2) John's life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sight of Jesus' going about without a home as he knew how faithfully he had made provision for the care of his mother and

가족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를 가슴속 깊이 동정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조그마한 소망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늘 양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뢰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줬으며, 그래서 이것은 훗날에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성품에 뚜렷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거의 없는, 냉철하고 대담한 용기를 소유했다. 그는 **예수**께서 체포되던 날 밤에도 즉시 **예수**를 따라 갔고, 감히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곁을 지켰으며,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그의 신뢰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았고, **주님**이 필사자로서 실존하던 마지막 순간에도, 주어진지도 모를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곁에 있었다. **요한**이 굉장히 믿을 만했다는 그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열두 사도가 식사할 때, **요한**은 대개 **예수**의 오른 편에 앉았다. 열두 사도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고 완전하게 부활을 믿었고, 부활한 **예수**께서 해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 본 사람도 그였다.

이 **세배대**의 아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전개될 때 **베드로**와 매우 가깝게 관련돼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오른 팔 역할을 했다.

요한은, **아고보**가 순교한 후 몇 년 뒤에,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했다. 여생에 마지막 20년 동안, 사랑스런 손녀(孫女)의 보살핌을 받았다.

요한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고, 다른 황제가 **로마**에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 4년 동안 **빛모섬**에 유배됐다. **요한**이 약삭빠르고 영리하지 못했더라면, 더 거침없이 말하는 형 **아고보**처럼 그 역시 분명히 처형됐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동생 **아고보**와 더불어 정부의 고관들 앞에 불려 나갔을 때, 현명하게 회유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물리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교회가 “하늘 나라”라기보다 오히려 “인류의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관계”라고 설명하는 것도 배웠다. 그들은 지배하는 힘보다--곧 왕국과 왕보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르쳤다.

요한은 **빛모섬**에 잠시 유배됐을 때 **게시록**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단축되고 왜곡돼 있다. 이 **게시록**은 어떤 엄청난 계시 중에서 남아있는 여러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많은 부분이 누락됐고, 어떤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했다. 그것은 단지 부분적이고, 다른 것이 섞인 형태로 보존됐다.

family. John also deeply sympathized with Jesus because of his family's failure to understand him, being aware that they were gradually withdrawing from him. This entire situation, together with Jesus' ever deferring his slightest wish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his daily life of implicit trust, made such a profound impression on John that it produced marked and permanent changes in his character, changes which manifested themselves throughout his entire subsequent life.

139:4.10 (1555.3) John had a cool and daring courage which few of the other apostles possessed. He was the one apostle who followed right along with Jesus the night of his arrest and dared to accompany his Master into the very jaws of death. He was present and near at hand right up to the last earthly hour and was found faithfully carrying out his trust with regard to Jesus' mother and ready to receive such additional instructions as might be given during the last moments of the Master's mortal existence. One thing is certain, John was thoroughly dependable. John usually sat on Jesus' right hand when the twelve were at meat. He was the first of the twelve really and fully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he w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Master when he came to them on the seashore after his resurrection.

139:4.11 (1555.4) This son of Zebedee was very closely associated with Peter in the early activities of the Christian movement, becoming one of the chief supporters of the Jerusalem church. He was the right-hand support of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139:4.12 (1555.5) Several years after the martyrdom of James, John married his brother's widow. The last twenty years of his life he was cared for by a loving granddaughter.

139:4.13 (1555.6) John was in prison several times and was banished to the Isle of Patmos for a period of four years until another emperor came to power in Rome. Had not John been tactful and sagacious, he would undoubtedly have been killed as was his more outspoken brother James. As the years passed, John, together with James the Lord's brother, learned to practice wise conciliation when they appeared before the civil magistrates. They found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They also learned to represent the church as a “spiritual brotherhood devoted to the social service of mankind” rather than as “the kingdom of heaven.” They taught loving service rather than ruling power — kingdom and king.

139:4.14 (1555.7) When in temporary exile on Patmos, John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you now have in greatly abridged and distorted form. This Book of Revelation contains the surviving fragments of a great revelation, large portions of which were lost, other portions of which were removed, subsequent to John's writing. It is

요한은 여행을 많이 했고,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이 된 후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흔아홉 살 때 **에베소**에서 동역자 **나단**에게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글을 쓰도록 지시했다. 열두 사도 전체 중에서, 결국에는 **요한 세베대**가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됐다. 그는 **에베소**에서 103년에 자연사했는데, 그때 나이는 101세였다.

5. 호기심 많은 빌립

빌립은 다섯째로 뽑힌 사도였는데, **예수**와 처음 네 사도가 **요단**에서 **요한**을 만난 후 **갈릴리** **가나**로 가는 도중에 부름 받았다. **빌립**은 **벳새다**에서 살았으므로 **예수**와 이미 아는 사이였지만, **요단** 계곡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예수**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 다소 영향을 받았다.

빌립은 사도로 참여했을 때 스물일곱 살이었는데; 최근에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호기심”이라는 뜻의 단어로 별명을 붙여 줬다. **빌립**은 언제나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 어떤 계획에서도 결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듯했다. 둔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상상력이 부족했다. 이 상상력 결핍은 그의 성격상 큰 단점이었다. 그는 평범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이 봉사를 위해 조직을 갖췄을 때, **빌립**은 사무장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항상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그의 가장 강한 특질은 조직적인 꼼꼼함이었는데; 수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빌립은 아들 셋과 딸 넷의 일곱 자녀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둘째였고, **주님**의 부활이 있는 후에,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했다. **빌립**의 친척은 모두 어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능력 있고 생각이 깊었으나,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빌립**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을 큰 일처럼 할 수 있었고, 매우 적절하게 잘 처리했다. 4년 동안, 모든 사람을 먹일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 것은 몇 번뿐이었다. 그들이 지내는 동안 겪었던 여러 차례의 비상시{非常時}에도, 그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도 일행의 물자조달 부서는, 지적으로 효과 있게 관리됐다.

preserved in only fragmentary and adulterated form.

139:4.15 (1555.8) John traveled much, labored incessantly, and after becoming bishop of the Asia churches, settled down at Ephesus. He directed his associate, Nathan, in the writing of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John,” at Ephesus, when he was ninety-nine years old. Of all the twelve apostles, John Zebedee eventually became the outstanding theologian. He died a natural death at Ephesus in A.D. 103 when he was one hundred and one years of age.

5. PHILIP THE CURIOUS

139:5.1 (1556.1) Philip was the fifth apostle to be chosen, being called when Jesus and his first four apostles were on their way from John's rendezvous on the Jordan to Cana of Galilee. Since he lived at Bethsaida, Philip had for some time known of Jesus, but it had not occurred to him that Jesus was a really great man until that day in the Jordan valley when he said, “Follow me.” Philip was also somewhat influenced by the fact that Andrew, Peter, James, and John had accepted Jesus as the Deliverer.

139:5.2 (1556.2) Philip was twenty-seven years of age when he joined the apostles; he had recently been married, but he had no children at this time. The nickname which the apostles gave him signified “curiosity.” Philip was always wanting to be shown. He never seemed to see very far into any proposition. He was not necessarily dull, but he lacked imagination. This lack of imagination was the great weakness of his character. He was a commonplace and matter-of-fact individual.

139:5.3 (1556.3) When the apostles were organized for service, Philip was made steward; it was his duty to see that they were at all times supplied with provisions. And he was a good steward. His strongest characteristic was his methodical thoroughness; he was both mathematical and systematic.

139:5.4 (1556.4) Philip came from a family of seven, three boys and four girls. He was next to the oldest, and after the resurrection he baptized his entire family into the kingdom. Philip's people were fisherfolk. His father was a very able man, a deep thinker, but his mother was of a very mediocre family. Philip was not a man who could be expected to do big things, but he was a man who could do little things in a big way, do them well and acceptably. Only a few times in four years did he fail to have food on hand to satisfy the needs of all. Even the many emergency demands attendant upon the life they lived seldom found him unprepared. The commissary department of the apostolic family was intelligently and efficiently

빌립의 강점은 조직적인 확실성에 있었으며; 그의 성질의 약점은 상상력이 전혀 없는 것, 둘에 둘을 더하여 넷을 얻는 역량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론적인 것에서는 수학적이었지만,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어떤 유형의 상상력에서는 거의 완전히 결핍돼 있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보통 사람의 전형이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대중 가운데는 그런 남녀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주님**의 협의회에서 명예로운 지위까지 높여진 것을 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으며; 그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이미 천국의 직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 **예수**께서는 **빌립**의 우둔한 질문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고, “보여 달라”는 사무장의 요구에 그토록 여러 번 응하면서, 일부 인간의 정신이 그 사람처럼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빌립이 그토록 계속해서 존경했던 **예수**에 관하여 한 가지 특성은, **주님**의 무한한 관대함이었다. **빌립**은 **예수**로부터 웅졸하거나, 인색하거나, 또는 제재한 어떤 것을 결코 볼 수 없었고, 항상 나타나는 지칠 줄 모르는 이런 너그름을 존경했다.

빌립의 인간성에는 감탄할만한 점이 거의 없었다. 그는 흔히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성읍 **벳새다**의 **빌립**”이라고 불렸다. 분별하는 선견지명이 거의 없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극적인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비관적이지 않았고; 그저 단조로웠다. 또한 영적 통찰력이 매우 부족했다. 명백하게 우둔한 질문을 묻기 위해, **주님**의 가장 심각한 강론 중간에 **예수**를 중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경솔함에 대해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았으며; 그를 인내심으로 대했고, 가르침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배려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방해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한 번이라도 **빌립**을 책망한다면, 이 정직한 혼에 상처를 줄뿐 아니라, 그런 비난이 **빌립**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은 공간의 세계들에는, 비슷하게 생각이 더딘 필사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알았고, 그들 모두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질문이나 문제를 항상 편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용기를 주고자 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자기가 전하려던 설교보다 **빌립**의 우둔한 질문에 진정으로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뒀다.

사무장인 이 사도는 훌륭한 대중 웅변가는 아니었지만, 개인을 상대할 때 매우 설득력 있고 성공적인 일꾼이었다. 그는 쉽게 용기 잃지 않았으며; 자기가 맡은 어떤 것에서든지 꾸준하고 매우 끈기 있었다. 그는 “오라”고 말하는 훌륭하고 보기

managed.

139:5.5 (1556.5) The strong point about Philip was his methodical reliability; the weak point in his make-up was his utter lack of imagination, the absence of the ability to put two and two together to obtain four. He was mathematical in the abstract but not constructive in his imagination. He was almost entirely lacking in certain types of imagination. He was the typical everyday and commonplace average man. There were a great many such men and women among the multitudes who came to hear Jesus teach and preach, and they derived great comfort from observing one like themselves elevated to an honored position in the councils of the Master; they derived courage from the fact that one like themselves had already found a high place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And Jesus learned much about the way some human minds function as he so patiently listened to Philip's foolish questions and so many times complied with his steward's request to “be shown.”

139:5.6 (1556.6) The one quality about Jesus which Philip so continuously admired was the Master's unfailing generosity. Never could Philip find anything in Jesus which was small, niggardly, or stingy, and he worshiped this ever-present and unfailing liberality.

139:5.7 (1557.1) There was little about Philip's personality that was impressive. He was often spoken of as “Philip of Bethsaida, the town where Andrew and Peter live.” He was almost without discerning vision; he was unable to grasp the dramatic possibilities of a given situation. He was not pessimistic; he was simply prosaic. He was also greatly lacking in spiritual insight. He would not hesitate to interrupt Jesus in the midst of one of the Master's most profound discourses to ask an apparently foolish question. But Jesus never reprimanded him for such thoughtlessness; he was patient with him and considerate of his inability to grasp the deeper meanings of the teaching. Jesus well knew that, if he once rebuked Philip for asking these annoying questions, he would not only wound this honest soul, but such a reprimand would so hurt Philip that he would never again feel free to ask questions. Jesus knew that on his worlds of space there were untold billions of similar slow-thinking mortals, and he wanted to encourage them all to look to him and always to feel free to come to him with their questions and problems. After all, Jesus was really more interested in Philip's foolish questions than in the sermon he might be preaching. Jesus was supremely interested in *men*, all kinds of men.

139:5.8 (1557.2) The apostolic steward was not a good public speaker, but he was a very persuasive and successful personal worker. He was not easily discouraged; he was a plodder and very tenacious in anything he undertook. He had that

드문 은사를 갖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로 개종시킨 **나다니엘**이 **나사렛**과 **예수**의 장단점에 대해 논쟁하려 했을 때, **빌립**의 효과적인 대답은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에게 “가라”--곧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훈계하는 독단적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오라”는 말로--곧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겠다”는 말로--대처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침의 모든 형식 및 국면에서 항상 효과적인 기법이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는 대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네게 더 나은 길을 보여 주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더 훌륭한 방법을 **빌립**에게서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는 **빌립**의 무능력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스인**이 그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잘 나타났다. **빌립**은 어떤 **유대인**이든지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었고, **빌립**은 상급자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지시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우두머리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런 후에 둘이서 **그리스인**을 **예수**께 데려갔다. 마찬가지로, 그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신자 {信者}들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려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개종자에게 손 없는 것을 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는데, 이들은 그때 모 {母}교회를 대표해서 그의 일을 관찰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즉시 내려왔다.

빌립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시험 기간을 잘 견뎠고, 열두 사도를 재조직하는 데 참여했으며, **유대인** 직계 만일 밖에서 천국을 향한 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진한 첫 번째 사도였는데, **사마리아인**을 위한 그의 활동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의 훗날의 모든 수고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빌립의 아내는 여자 단체 중에서 유능한 회원이었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도주한 뒤에, 남편의 복음전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아내는 두려움 없는 여자였다. 그 여자는 **빌립**의 십자가 밑에 서서,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를 격려했고, 그의 힘이 다하자, 그 여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를 외치기 시작했으며, 성난 **유대인**이 그 여자에게 달려와 돌로 죽였을 때에야 비로소 잠잠했다. 그들의 딸 **레아**가 그들의 일을 이어받았고, 나중에는 **히에라폴리스**의 저명한 여 {女}선지자가 됐다.

한때 열두 사도의 사무장이었던 **빌립**은, 가는 곳마다 혼을 구제한, 천국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고, **히에라폴리스**에 묻혔다.

great and rare gift of saying, “Come.” When his first convert, Nathaniel, wanted to argue about the merits and demerits of Jesus and Nazareth, Philip’s effective reply was, “Come and see.” He was not a dogmatic preacher who exhorted his hearers to “Go” — do this and do that. He met all situations as they arose in his work with “Come” — “come with me; I will show you the way.” And that is always the effective technique in all forms and phases of teaching. Even parents may learn from Philip the better way of saying to their children *not* “Go do this and go do that,” but rather, “Come with us while we show and share with you the better way.”

139:5.9 (1557.3) The inability of Philip to adapt himself to a new situation was well shown when the Greeks came to him at Jerusalem, saying: “Sir, we desire to see Jesus.” Now Philip would have said to any Jew asking such a question, “Come.” But these men were foreigners, and Philip could remember no instructions from his superiors regarding such matters; so the only thing he could think to do was to consult the chief, Andrew, and then they both escorted the inquiring Greeks to Jesus. Likewise, when he went into Samaria preaching and baptizing believers, as he had been instructed by his Master, he refrained from laying hands on his converts in token of their having received the Spirit of Truth. This was done by Peter and John, who presently came down from Jerusalem to observe his work in behalf of the mother church.

139:5.10 (1557.4) Philip went on through the trying times of the Master’s death, participat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twelve, and was the first to go forth to win souls for the kingdom outside of the immediate Jewish ranks, being most successful in his work for the Samaritans and in all his subsequent labors in behalf of the gospel.

139:5.11 (1557.5) Philip’s wife, who was an efficient member of the women’s corps, became actively associated with her husband in his evangelistic work after their flight from the Jerusalem persecutions. His wife was a fearless woman. She stood at the foot of Philip’s cross encouraging him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even to his murderers, and when his strength failed, she began the recital of the story of salvation by faith in Jesus and was silenced only when the irate Jews rushed upon her and stoned her to death. Their eldest daughter, Leah, continued their work, later on becoming the renowned prophetess of Hierapolis.

139:5.12 (1558.1) Philip, the onetime steward of the twelve, was a mighty man in the kingdom, winning souls wherever he went; and he was finally crucified for his faith and buried at Hierapolis.

6. 정직한 나다니엘

나다니엘은, **주님**께서 직접 뽑은 여섯째이자 마지막 사도였고, 친구 **빌립**에게 이끌려서 **예수**께 안내됐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빌립**과 친분을 맺어왔었는데, 그와 함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

나다니엘은 사도로서 참여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그 집단에서 둘째로 나이가 어렸다. 그는 일곱 가족 가운데 막내였고 미혼이었으며, **가나**에서 함께 사는, 나이 많고 허약한 부모의 유일한 부양자였는데; 그의 형과 누나들은 결혼 했거나 죽었으므로,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가롯 유다**는 열두 사도 가운데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다. **나다니엘**은 상인이 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별명을 직접 지어 준 일은 없었지만, 열두 사도는 곧,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큰 장점이었으며; 그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진지했다. 그의 성격상 약점은 자존심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가족, 도시, 명성, 그리고 민족에 대해 매우 자만심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은 지나치지만 **않았다면** 칭찬받을 만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 편견을 극단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견해에 따라서 사람마다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주저함 없이 질문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존심이 강했음에도, 완고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얼굴을 일단 살폈을 때,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열두 사도 중에서 **나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색다른 천재였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철학자요 공상가였지만, 매우 실질적인 공상가였다. 한때는 철학에 깊이 빠졌다가, 다음에는 희귀하고 익살스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에는, 그가 아마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유능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심각한 일은 물론 사소한 일에 대해 **나다니엘**이 연설하는 것을 듣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나다니엘**은 날이 갈수록, **예수**와 천국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나, 자신은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도들 모두가 **나다니엘**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그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와 아주 잘 지냈다. **유다**는, **나다니엘**이 사도 직분을 충분히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한 번은 무모하게도 **예수**께 몰래 가서 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놨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유다**야, 신중히 행동해라; 네 직분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누가 형제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졌겠느냐? **아버지**의 자녀들이 인생의 심각한 일만 함께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는데: 나는 육신 속의 내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6. HONEST NATHANIEL

139:6.1 (1558.2) Nathaniel, the sixth and last of the apostles to be chosen by the Master himself, was brought to Jesus by his friend Philip. He had been associated in several business enterprises with Philip and, with him, was on the way down to see John the Baptist when they encountered Jesus.

139:6.2 (1558.3) When Nathaniel joined the apostles, he was twenty-five years old and was the next to the youngest of the group. He was the youngest of a family of seven, was unmarried, and the only support of aged and infirm parents, with whom he lived at Cana; his brothers and sister were either married or deceased, and none lived there. Nathaniel and Judas Iscariot were the two best educated men among the twelve. Nathaniel had thought to become a merchant.

139:6.3 (1558.4) Jesus did not himself give Nathaniel a nickname, but the twelve soon began to speak of him in terms that signified honesty, sincerity. He was “without guile.” And this was his great virtue; he was both honest and sincere. The weakness of his character was his pride; he was very proud of his family, his city, his reputation, and his nation, all of which is commendable if it is not carried too far. But Nathaniel was inclined to go to extremes with his personal prejudices. He was disposed to prejudge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his personal opinions. He was not slow to ask the question, even before he had met Jesus,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But Nathaniel was not obstinate, even if he was proud. He was quick to reverse himself when he once looked into Jesus’ face.

139:6.4 (1558.5) In many respects Nathaniel was the odd genius of the twelve. He was the apostolic philosopher and dreamer, but he was a very practical sort of dreamer. He alternated between seasons of profound philosophy and periods of rare and droll humor; when in the proper mood, he was probably the best storyteller among the twelve. Jesus greatly enjoyed hearing Nathaniel discourse on things both serious and frivolous. Nathaniel progressively took Jesus and the kingdom more seriously, but never did he take himself seriously.

139:6.5 (1558.6) The apostles all loved and respected Nathaniel, and he got along with them splendidly, excepting Judas Iscariot. Judas did not think Nathaniel took his apostleship sufficiently seriously and once had the temerity to go secretly to Jesus and lodge complaint against him. Said Jesus: “Judas, watch carefully your steps; do not overmagnify your office. Who of us is competent to judge his brother? It is not the Father’s will that his children should partake only of the serious things of life. Let me repeat: I have come that my

삶을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유다**야, 이제 가서 네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네 형제 **나다니엘**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 기억은, 다른 많은 비슷한 체험과 함께, 자신을 속이는 **가롯 유다**의 심정에 오래 남아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여러 번 산으로 멀리 떠나고, 사도들 사이에서 일이 긴박해지고 복잡하게 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 **안드레**까지도 그의 울적한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나다니엘**이 약간의 철학 혹은 변죽이는 유머;또한 재미있는 유머로, 긴장감을 풀어주곤 했다.

나다니엘의 의무는 열두 사도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사도들 회의에 자주 결석했는데, 그가 맡고 있는 가족 중에서 병자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그 가족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열두 사도는, 자기 가족의 안녕이 **나다니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음을 알았기에, 안심하면서 지냈다.

나다니엘이 **예수**를 가장 존경한 점은 그의 아량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의 넓은 도량과 관대한 동정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운이 솟았다.

나다니엘의 아버지(**바돌로메오**)가 **오순절** 직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도는 그 후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로 떠났다. 그의 형제들은, 한때 그들의 철학가요 시인이며 익살꾼이었던 그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비록 나중에 생긴 **그리스도교** 교회의 조직에는 그가 참여치 않았지만, **주님**의 교훈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많이 했다. **나다니엘**은 **인도**에서 죽었다.

7. 레위 마태

일곱째 사도인 **마태**는 **안드레**에게 선택됐다. **마태**는, 세금 징수원, 즉 세리{稅吏}의 집안에 속했지만,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관세를 거두는 일을 했다. 그는 서툰한 살이었고 결혼했으며 네 자녀를 뒀다. 그는, 사도 단체에 속해 있는 자로서는 유일하게 재산이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사교술이 좋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은사가 있었다.

안드레는 **마태**를 사도들의 재정 대표로 임명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의 재무 대리인이었고, 공식 대변인이었다.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판단했고 매우 효과적인 선전원이었다. 표현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지만, 매우 열성적인 제자였고, **예수**의 사명과 천국의 확실성을 점점 더 믿는 자

brethren in the flesh may have joy, gladness, and life more abundantly. Go then, Judas, and do well that which has been intrusted to you but leave Nathaniel, your brother, to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And the memory of this, with that of many similar experiences, long lived in the self-deceiving heart of Judas Iscariot.

139:6.6 (1559.1) Many times, when Jesus was away on the mountain with Peter, James, and John, and things were becoming tense and tangled among the apostles, when even Andrew was in doubt about what to say to his disconsolate brethren, Nathaniel would relieve the tension by a bit of philosophy or a flash of humor; good humor, too.

139:6.7 (1559.2) Nathaniel's duty was to look after the families of the twelve. He was often absent from the apostolic councils, for when he heard that sickness or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had happened to one of his charges, he lost no time in getting to that home. The twelve rested securely in the knowledge that their families' welfare was safe in the hands of Nathaniel.

139:6.8 (1559.3) Nathaniel most revered Jesus for his tolerance. He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the broadmindedness and generous sympathy of the Son of Man.

139:6.9 (1559.4) Nathaniel's father (Bartholomew) died shortly after Pentecost, after which this apostle went into Mesopotamia and India proclaiming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His brethren never knew what became of their onetime philosopher, poet, and humorist. But he also was a great man in the kingdom and did much to spread his Master's teachings, even though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f the subsequent Christian church. Nathaniel died in India.

7. MATTHEW LEVI

139:7.1 (1559.5) Matthew, the seventh apostle, was chosen by Andrew. Matthew belonged to a family of tax gatherers, or publicans, but was himself a customs collector in Capernaum, where he lived. He was thirty-one years old and married and had four children. He was a man of moderate wealth, the only one of any means belonging to the apostolic corps. He was a good business man, a good social mixer, and was gifted with the ability to make friends and to get along smoothly with a great variety of people.

139:7.2 (1559.6) Andrew appointed Matthew the financial representative of the apostles. In a way he was the fiscal agent and publicity spokesman for the apostolic organization. He was a keen judge of human nature and a very efficient propagandist. His is a personality difficult to

었다. **예수**께서는 **레위**에게 별명을 주지 않았지만, 동료 사도들은 흔히 그를 “돈_거두는 자”라는 말로 칭했다.

레위의 장점은 대의{大義}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었다. 세리인 그를 **예수**와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는 점은, 지난날에 세금을 거뒀던 사람 편에서 넘치도록 감사할 원인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 특히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가, 자기네 중에 세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마태**의 약점은 안목이 짧은 것과 삶에 대한 물질적 관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문제에서 세월이 갈수록 많은 진전을 보였다. 물론 금고를 계속 채우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므로, 가장 귀중한 학습 시간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마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주님**의 용서하는 경향이였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곤 했다. 그는 천국에 대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일”이라고 말하기를 항상 좋아했다.

마태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훌륭하게 처신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역자들도 세리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광범하게 받아 적은 사도 가운데 하나로써, 이 기록은 나중에 **이사도르**가 만든 **예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서술문의 기초로 사용됐는데, **마태**에 의한 **복음서**로 알려지게 됐다.

사업가이자 **가버나움**의 관세 징수원이었던 **마태**의 위대하고 유용한 생애는,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다른 사업가, 공공 관리, 및 정치가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도록 인도하는 매개체가 됐다. **마태**는 진정으로 명석한 정치가였지만, **예수**께 지극히 충성스러웠고, 도래하는 천국의 사자{使者}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과제에 더할 나위 없이 헌신했다.

열두 사도 가운데 **마태**가 끼어 있다는 점은, 자신들에게는 종교적 위안의 혜택이 없다고 오래 전부터 여겨 왔던 다수의 기죽고 버림받은 혼들에게, 천국 문을 계속 활짝 열어 놓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남녀가 **예수**께 귀를 기울이려고 모여들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마태는, **주님**의 교훈을 직접 들은 사람과 신도들로부터 들어오는 현금을 기꺼이 받았지만, 대중에게 기금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재정 업무를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

visualize, but he was a very earnest disciple and an increasing believer in the mission of Jesus and in the certainty of the kingdom. Jesus never gave Levi a nickname, but his fellow apostles commonly referred to him as the “money-getter.”

139:7.3 (1559.7) Levi's strong point was his wholehearted devotion to the cause. That he, a publican, had been taken in by Jesus and his apostles was the cause for overwhelming gratitude on the part of the former revenue collector. However, it required some little time for the rest of the apostles, especially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to become reconciled to the publican's presence in their midst. Matthew's weakness was his shortsighted and materialistic viewpoint of life. But in all these matters he made great progress as the months went by. He, of course, had to be absent from many of the most precious seasons of instruction as it was his duty to keep the treasury replenished.

139:7.4 (1559.8) It was the Master's forgiving disposition which Matthew most appreciated. He would never cease to recount that faith only was necessary in the business of finding God. He always liked to speak of the kingdom as “this business of finding God.”

139:7.5 (1560.1) Though Matthew was a man with a past, he gave an excellent account of himself, and as time went on, his associates became proud of the publican's performances. He was one of the apostles who made extensive notes on the sayings of Jesus, and these notes were used as the basis of Isador's subsequent narrative of the sayings and doings of Jesus, which has become known a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139:7.6 (1560.2) The great and useful life of Matthew, the business man and customs collector of Capernaum, has been the means of leading thousands upon thousands of other business men,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down through the subsequent ages, also to hear that engaging voice of the Master saying, “Follow me.” Matthew really was a shrewd politician, but he was intensely loyal to Jesus and supremely devoted to the task of seeing that the messengers of the coming kingdom were adequately financed.

139:7.7 (1560.3) The presence of Matthew among the twelve was the means of keeping the doors of the kingdom wide open to hosts of downhearted and outcast souls who had regarded themselves as long since without the bounds of religious consolation. Outcast and despairing men and women flocked to hear Jesus, and he never turned one away.

139:7.8 (1560.4) Matthew received freely tendered offerings from believing disciples and the immediate auditors of the Master's teachings, but he never openly solicited funds from the

법으로 했고, 대부분의 돈을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관심 있는 신도들로부터 모금했다. 그는 실제로 **주님**과 사도들의 일을 위해 자신의 온당한 재산을 사용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예수**를 제외하고, 그들은 그의 이런 관용을 알지 못했다. **마태**는, **예수**와 동역자들이 자기 돈을 오염된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사도들의 기금으로 공공연하게 헌금하지 못했으며; 다른 신도들의 이름으로 많이 기부했다. 초기의 여러 달 동안, **마태**는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다소 시험거리가 됐을 때, 자기 돈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종종 공급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세리를 경멸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레위**는 자신이 후하게 기부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으나, 항상 잠자코 있도록 자신을 잘 다스렸다.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기금이 예산보다 모자랄 때, **레위**는 자기 개인 재산에서 많이 빼서 쓰곤 했다. 또한 그는 가끔씩, **예수**의 가르침에 대단히 흥미를 느꼈을 때, 필요한 기금이 건히지 않아서 자기가 대신 개인적으로 그 기금을 충당해야 했음에도, 그 설명을 듣기 위해 남아 있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레위**는, 많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 다 알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박해가 시작된 후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마태**에게 실질적으로 동전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마태**가 그들의 후원자였음을,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다.

이런 박해로 인해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북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옛 사도 동역자들과 연락이 끊어졌지만, 전도하고 세례를 주면서, **시리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레이스**를 지나갔다. **리시마키아**에 있는 **드레이스**에서는, 어떤 비신자 **유대인**이 **로마** 병정과 공모하여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렀을 때, 그의 교훈으로부터 아주 확실히 배운 구원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 세리는 승리의 죽음을 맞이했다.

8. 도마 디두모

도마는 여덟째 사도였고, **빌립**에게 선택됐다. 그는 후일에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지게 됐지만, 동료 사도들이 그를 상습적으로 의심하는 자라고 여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정말로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유형의 정신을 지녔지만, 그의 용기 있는 충성심 때문에, 그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를 어리석은 회의론자로 여기지 못했다.

multitudes. He did all his financial work in a quiet and personal way and raised most of the money among the more substantial class of interested believers. He gave practically the whole of his modest fortune to the work of the Master and his apostles, but they never knew of this generosity, save Jesus, who knew all about it. Matthew hesitated openly to contribute to the apostolic funds for fear that Jesus and his associates might regard his money as being tainted; so he gave much in the names of other believers. During the earlier months, when Matthew knew his presence among them was more or less of a trial, he was strongly tempted to let them know that his funds often supplied them with their daily bread, but he did not yield. When evidence of the disdain of the publican would become manifest, Levi would burn to reveal to them his generosity, but always he managed to keep still.

139:7.9 (1560.5) When the funds for the week were short of the estimated requirements, Levi would often draw heavily upon his own personal resources. Also, sometimes when he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Jesus' teaching, he preferred to remain and hear the instruction, even though he knew he must personally make up for his failure to solicit the necessary funds. But Levi did so wish that Jesus might know that much of the money came from his pocket! He little realized that the Master knew all about it. The apostles all died without knowing that Matthew was their benefactor to such an extent that, when he went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fter the beginning of the persecutions, he was practically penniless.

139:7.10 (1560.6) When these persecutions caused the believers to forsake Jerusalem, Matthew journeyed north,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He was lost to the knowledge of his former apostolic associates, but on he went, preaching and baptizing, through Syria, Cappadocia, Galatia, Bithynia, and Thrace. And it was in Thrace, at Lysimachia, that certain unbelieving Jews conspired with the Roman soldiers to encompass his death. And this regenerated publican died triumphant in the faith of a salvation he had so surely learned from the teachings of the Master during his recent sojourn on earth.

8. THOMAS DIDYMUS

139:8.1 (1561.1) Thomas was the eighth apostle, and he was chosen by Philip. In later times he has become known as “doubting Thomas,” but his fellow apostles hardly looked upon him as a chronic doubter. True, his was a logical, skeptical type of mind, but he had a form of courageous loyalty which forbade those who knew him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 **도마**는 스물 아홉 살이었고, 결혼해서 네 자녀가 있었다. 그가 전에는 목수와 석공 일을 했으나, 나중에는 어부 일을 하면서 **다리키아**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갈릴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 서쪽 비탈에 위치해 있었고, 이 작은 마을에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예리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소유했으며, **디베라**에서 사는 훌륭한 부모를 뒀다. **도마**는 열두 사도 중에서 진정으로 분석하는 정신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사도 집단에서 참된 과학자였다.

도마의 초기 가정생활은 불행했으며;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도마**의 성년기 체험에 반영됐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 잘하는 성질을 갖고 자랐다. 그의 부인도 그가 사도들과 합류하게 된 것을 기뻐했으며; 비판적인 남편이 대체로 집을 비우게 됐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해 매우 화가 나서, **도마**는 “비열하고, 불쾌하며, 항상 의심하는 자”라고, 형 **안드레**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동역자들은, **도마**를 더 잘 알아갈수록, 그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들은 그가 매우 정직하고 단호하게 충성스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할 나위 없이 진지했고, 분명히 진실했지만, 날 때부터 혈통은 사람이었으며, 실제로 비판주의자로서 자라왔다. 그의 분석적인 정신은 의심으로 끔찍해졌다. 열두 사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그는 동료 남자들로부터 급속도로 신뢰를 잃게 됐지만, 이처럼 **예수**의 고상한 성품과 접촉하게 됐다. **주님**과 나눈 이런 교제는 **도마**의 전반적인 기질을 즉시 바꾸기 시작했고, 동료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영향을 미쳤다.

도마의 큰 강점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 굶핍 줄 모르는 용기와 함께, 굉장히 분석적인 정신을 가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의심스러운 불신감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서의 생애 동안에는 결코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열두 사도 조직에서, **도마**는 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에 배정됐고, 사도 단체의 업무와 활동을 유능하게 지휘하는 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가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돼있었다. 사도들의 일원이 됐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예수** 및 사도들과 접촉한 것이, 이 과민한 내성적 성격의 그를 많이 치료했다.

예수께서는 **도마**와 매우 유쾌하게 지냈고, 그

intimately to regard him as a trifling skeptic.

139:8.2 (1561.2) When Thomas joined the apostles, he was twenty-nine years old, was married, and had four children. Formerly he had been a carpenter and stone mason, but latterly he had become a fisherman and resided at Tarichea, situated on the west bank of the Jordan where it flows out of the Sea of Galilee, and he was regarded as the leading citizen of this little village. He had little education, but he possessed a keen, reasoning mind and was the son of excellent parents, who lived at Tiberias. Thomas had the one truly analytical mind of the twelve; he was the real scientist of the apostolic group.

139:8.3 (1561.3) The early home life of Thomas had been unfortunate; his parents were not altogether happy in their married life, and this was reflected in Thomas's adult experience. He grew up having a very disagreeable and quarrelsome disposition. Even his wife was glad to see him join the apostles; she was relieved by the thought that her pessimistic husband would be away from home most of the time. Thomas also had a streak of suspicion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to get along peaceably with him. Peter was very much upset by Thomas at first, complaining to his brother, Andrew, that Thomas was “mean, ugly, and always suspicious.” But the better his associates knew Thomas, the more they liked him. They found he was superbly honest and unflinchingly loyal. He was perfectly sincere and unquestionably truthful, but he was a natural-born faultfinder and had grown up to become a real pessimist. His analytical mind had become cursed with suspicion. He was rapidly losing faith in his fellow men when he became associated with the twelve and thus came in contact with the noble character of Jesus. This association with the Master began at once to transform Thomas's whole disposition and to effect great changes in his mental reactions to his fellow men.

139:8.4 (1561.4) Thomas's great strength was his superb analytical mind coupled with his unflinching courage — when he had once made up his mind. His great weakness was his suspicious doubting, which he never fully overcame throughout his whole lifetime in the flesh.

139:8.5 (1561.5) In the organization of the twelve Thomas was assigned to arrange and manage the itinerary, and he was an able director of the work and movements of the apostolic corps. He was a good executive, an excellent businessman, but he was handicapped by his many moods; he was one man one day and another man the next. He was inclined toward melancholic brooding when he joined the apostles, but contact with Jesus and the apostles largely cured him of this morbid introspection.

139:8.6 (1561.6) Jesus enjoyed Thomas very much

와 여러 번 긴 개인적 대화를 나눴다. 그가 사도들 가운데 있음은, 솔직하게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됐으며, 고심하는 허다한 인물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의 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들도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줬다. 열두 사도 중에 **도마**가 들어있음은, 솔직하게 의심하는 자들도 **예수**께서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선언이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충만한 인격에서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특징 때문에 그를 존경했지만, **도마**는 비할 바 없이 균형을 갖춘 **주님**의 성품 때문에 존경했다. **도마**는, 아주 사랑스럽게 자비로우면서 그토록 확고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무척이나 견고하지만 결코 완고하지 않은; 아주 침착하지만 결코 냉담하지 않은; 그토록 돕고자 하고 동정적이지만 결코 간섭하거나 독재적이지 않은; 아주 강하지만 동시에 무척 부드러운; 그토록 긍정적이지만 결코 사납거나 무례하지 않은; 아주 부드럽지만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하지만 동시에 무척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토록 진정으로 용감하지만 결코 경솔하거나 무모하지 않은; 무척이나 자연을 사랑하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경향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그렇게 해학적이고 쾌활하지만 경솔함과 천박함으로부터 무척이나 자유로운, **예수**를 점점 더 존경했고 받들었다. **도마**를 그토록 매료시킨 것은, 이렇게 비할 데 없는 인격의 균형이었다. 그는 아마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최고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인격을 감상했을 것이다.

열두 사도가 회의하는 중에 **도마**는 언제나 신중했고, 안전한 정책을 첫째로 옹호했지만, 그의 보수적 의견이 투표로 부결되거나 거부되면, 결정된 계획표를 이행하는 데, 그가 항상 제일 먼저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다. 그는 무모하고 외람된 어떤 기획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하여 반대하려고 했으며; 격렬한 가운데 끝날 때까지 논쟁하곤 했지만, **안드레**가 그 제안을 표결에 부쳐서, 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안건을 열두 사도가 통과시키고 나면, **도마**가 제일 먼저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패자였다. 상처받은 감상에 붙잡혀 있거나, 그것을 더 키우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을 그가 여러 번 반대했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험을 택하기로 결정하면, “동지들, 어서 갑시다. 가서 그와 함께 죽읍시다”라는 용기 있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사도들을 집결시키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도마는 어떤 면에서는 **빌립**과 비슷했는데; 그 역시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의심스런 표현은, 전혀 다른 지적{知的} 작용에 근거했다. **도마**는 단순히 회의적{懷疑的}이 아닌,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의 육체적 용기에 관한 한, 열두 사도 중에서 그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도마는 매우 힘든 날들을 어느 정도 겪었는데; 종종 우울했고 풀죽어 있었다. 그가 아홉 살이었을 때, 쌍둥이 여동생을 잃은 것이 어린 시절에

and had many long, personal talks with him. His presence among the apostles was a great comfort to all honest doubters and encouraged many troubled minds to come into the kingdom, even if they could not wholly understand everything about the spiritual and philosophic phases of the teachings of Jesus. Thomas's membership in the twelve was a standing declaration that Jesus loved even honest doubters.

139:8.7 (1562.1) The other apostles held Jesus in reverence because of some special and outstanding trait of his replete personality, but Thomas revered his Master because of his superbly balanced character. Increasingly Thomas admired and honored one who was so lovingly merciful yet so inflexibly just and fair; so firm but never obstinate; so calm but never indifferent; so helpful and so sympathetic but never meddlesome or dictatorial; so strong but at the same time so gentle; so positive but never rough or rude; so tender but never vacillating; so pure and innocent but at the same time so virile, aggressive, and forceful; so truly courageous but never rash or foolhardy; such a lover of nature but so free from all tendency to revere nature; so humorous and so playful, but so free from levity and frivolity. It was this matchless symmetry of personality that so charmed Thomas. He probably enjoyed the highest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personality appreciation of Jesus of any of the twelve.

139:8.8 (1562.2) In the councils of the twelve Thomas was always cautious, advocating a policy of safety first, but if his conservatism was voted down or overruled, he was always the first fearlessly to move out in execution of the program decided upon. Again and again would he stand out against some project as being foolhardy and presumptuous; he would debate to the bitter end, but when Andrew would put the proposition to a vote, and after the twelve would elect to do that which he had so strenuously opposed, Thomas was the first to say, “Let's go!” He was a good loser. He did not hold grudges nor nurse wounded feelings. Time and again did he oppose letting Jesus expose himself to danger, but when the Master would decide to take such risks, always was it Thomas who rallied the apostles with his courageous words, “Come on, comrades, let's go and die with him.”

139:8.9 (1562.3) Thomas was in some respects like Philip; he also wanted “to be shown,” but his outward expressions of doubt were based on entirely different intellectual operations. Thomas was analytical, not merely skeptical. As far as personal physical courage was concerned, he was one of the bravest among the twelve.

139:8.10 (1562.4) Thomas had some very bad days; he was blue and downcast at times. The loss of his twin sister when he was nine years old had

많은 슬픔을 겪고, 그것이 후반기 생애의 번덕스런 성격상 문제를 악화시켰다. **도마**가 낙심하게 되면, 어떤 때에는 **나다니엘**이, 어떤 때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알패오**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자주 도움을 줬다. 가장 억눌렸을 때, 그는 불행하게도 **예수**와 직접 대면하게 되기를 피하려고 항상 애썼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고, 그 사도가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난당하고 의심으로 지쳤을 때, 그에 대해 이해심 있는 연민의 정을 가졌다.

도마는 때때로 하루나 이틀 동안 혼자 떠나 있을 수 있도록 **안드레**에게 허락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행위가 현명치 않다는 것을 곧 알았으며; 자신이 낙심했을 때에는 일하면서 동역자들과 가까이 지내며 남아 있는 것이 상책임을 일찍 발견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는 항상 사도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오면,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도마는, 의심을 품고, 그것에 대면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한 본보기였다. 훌륭한 정신을 가졌으며; 트집 잡는 비평가가 아니었다. 논리적 사색가였으며; **예수**와 동료 사도들에게는 매서운 시험거리였다. **예수**와 그의 활동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도마**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예리하고 확실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사기나 속임수가 나타나자마자, **도마**는 그들 모두를 버렸을 것이다.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에 관하여,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과학자적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은--곧 **도마 디두모**는-- **주님**과 인간 동역자들과 함께 살았고 일했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

도마는 재판과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한동안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용기를 되찾았고 사도들에게 합류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의심으로 인한 억눌림에 한동안 굴복했지만, 결국에는 신앙과 용기를 되찾았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했고, 박해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키프러스**, **크레테**, **북아프리카** 해안, **시칠리**로 갔다. 그리고 **도마**는, **로마** 정부 대리인들에게 체포되어 **말타**에서 처형될 때까지, 전도하고 세례주기를 계속했다. 그는 죽기 불과 몇 주 전에,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기 시작했었다.

occasioned him much youthful sorrow and had added to his temperamental problems of later life. When Thomas would become despondent, sometimes it was Nathaniel who helped him to recover, sometimes Peter, and not infrequently one of the Alpheus twins. When he was most depressed, unfortunately he always tried to avoid coming in direct contact with Jesus. But the Master knew all about this and had an understanding sympathy for his apostle when he was thus afflicted with depression and harassed by doubts.

139:8.11 (1562.5) Sometimes Thomas would get permission from Andrew to go off by himself for a day or two. But he soon learned that such a course was not wise; he early found that it was best, when he was downhearted, to stick close to his work and to remain near his associates. But no matter what happened in his emotional life, he kept right on being an apostle. When the time actually came to move forward, it was always Thomas who said, “Let’s go!”

139:8.12 (1562.6) Thomas is the great example of a human being who has doubts, faces them, and wins. He had a great mind; he was no carping critic. He was a logical thinker; he was the acid test of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If Jesus and his work had not been genuine, it could not have held a man like Thomas from the start to the finish. He had a keen and sure sense of fact. At the first appearance of fraud or deception Thomas would have forsaken them all. Scientists may not fully understand all about Jesus and his work on earth, but there lived and worked with the Master and his human associates a man whose mind was that of a true scientist — Thomas Didymus — and he believed in Jesus of Nazareth.

139:8.13 (1563.1) Thomas had a trying time during the day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He was for a season in the depths of despair, but he rallied his courage, stuck to the apostles, and was present with them to welcome Jesus on the Sea of Galilee. For a while he succumbed to his doubting depression but eventually rallied his faith and courage. He gave wise counsel to the apostles after Pentecost and, when persecution scattered the believers, went to Cyprus, Crete, the North African coast, and Sicily, preaching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And Thomas continued preaching and baptizing until he was apprehended by the agents of the Roman government and was put to death in Malta. Just a few weeks before his death he had begun the writing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9. -- 10.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케사사 근처에 사는 쌍둥이 어부인, **알패오**의

9 AND 10. JAMES AND JUDAS ALPHEUS

139:9.1 (1563.2) James and Judas the sons of

아들 **야고보**와 **유다**는 아홉째와 열째 사도였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선택했다. 그들은 스물여섯 살이었고 결혼했으며, **야고보**는 세 자녀, **유다**는 두 자녀를 뒀다.

이 평범한 두 어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께서도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의 강론을 중단시키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동료 사도들의 철학적 토의나 신학적 논쟁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 집단에 속했다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이 두 사람은, 겉모습, 정신적 특징, 및 영적 감지 정도에서 거의 동일했다.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안드레는 그들에게 대중의 치안 유지 업무를 맡겼다. 그들은 설교 시간에 안내원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사실상 열두 사도 중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는 하인 및 심부름꾼이었다. 물자를 공급하는데 **빌립**을 도왔고, **나다니엘**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사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항상 돼있었다.

보통사람들로 이뤄진 대중은, 자신과 비슷한 두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보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 이 평범한 쌍둥이가 사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마음 약한 다수의 신도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공식 안내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관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더 편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다대오**와 **레비우스**라고도 불렀던 **야고보**와 **유다**는, 강점은 물론 약점도 없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은 평범함을 뜻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들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는데;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유쾌하게 생각했다.

야고보 알패오는 **주님**의 단순함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 쌍둥이는 **예수**의 정신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과 **주님**의 마음 사이에 호의적인 연결이 있음을 납득했다. 그들의 정신은 높은 계층에 속하지 않았으며;경건함에서는 우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영적 본성에서는 진정한 체험을 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며;**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천국의 동료였다.

유다 알패오는 **주님**의 허식 없는 겸손으로 인해 **예수**께 끌렸다. 그런 인격적 위엄을 동반한 그런 겸손이 **유다**에게 큰 매력을 줬다. **예수**께서 자신의 비범한 행동에 관해 항상 침묵을 지키고자 한다는 그 사실이, 이 단순한 본성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감명을 줬다.

Alpheus, the twin fishermen living near Kheresa, were the ninth and tenth apostles and were chosen by James and John Zebedee. They were twenty-six years old and married, James having three children, Judas two.

139:9.2 (1563.3) There is not much to be said about these two commonplace fisherfolk. They loved their Master and Jesus loved them, but they never interrupted his discourses with questions. They understood very little about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or the theological debates of their fellow apostles, but they rejoiced to find themselves numbered among such a group of mighty men. These two men were almost identical in personal appearance, mental characteristics, and extent of spiritual perception. What may be said of one should be recorded of the other.

139:9.3 (1563.4) Andrew assigned them to the work of policing the multitudes. They were the chief ushers of the preaching hours and, in fact, the general servants and errand boys of the twelve. They helped Philip with the supplies, they carried money to the families for Nathaniel, and always were they ready to lend a helping hand to any one of the apostles.

139:9.4 (1563.5) The multitudes of the common people were greatly encouraged to find two like themselves honored with places among the apostles. By their very acceptance as apostles these mediocre twins were the means of bringing a host of fainthearted believers into the kingdom. And, too, the common people took more kindly to the idea of being directed and managed by official ushers who were very much like themselves.

139:9.5 (1563.6) James and Judas, who were also called Thaddeus and Lebbeus, had neither strong points nor weak points. The nicknames given them by the disciples were good-natured designations of mediocrity. They were “the least of all the apostles”; they knew it and felt cheerful about it.

139:9.6 (1563.7) James Alpheus especially loved Jesus because of the Master's simplicity. These twins could not comprehend the mind of Jesus, but they did grasp the sympathetic bond between themselves and the heart of their Master. Their minds were not of a high order; they might even reverently be called stupid, but they had a real experience in their spiritual natures. They believed in Jesus; they were sons of God and fellows of the kingdom.

139:9.7 (1564.1) Judas Alpheus was drawn toward Jesus because of the Master's unostentatious humility. Such humility linked with such personal dignity made a great appeal to Judas. The fact that Jesus would always enjoin silence regarding his unusual acts made a great impression on this simple child of nature.

쌍둥이는, 너그러운 단순한 정신을 지닌 도우미였고, 모두가 그들을 사랑했다. 예수께서는, 재주가 하나뿐인 이 젊은이들을 천국에서 자신의 개인 참모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받아들였는데, 세상에는 그런 단순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혼이 있으므로, 자기가 퍼부어 줄 **진리의 영** 안으로, 그리고 자기와 나누는 적극적이고 신뢰하는 교제 안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소함을 경멸하지 않았고, 단지 악과 죄를 경멸했다. **아고보**와 **유다**는 보잘것없었지만, 또한 신실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무지했지만, 또한 도량이 넓고, 친절했으며, 관대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한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자(傳道者)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던 날, 이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졌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쌍둥이가 그의 조언자들 가운데 있음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신성한 기관만이--곧 하늘 나라만이-- 그런 진부한 인간적 기초 위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

그들은 예수와 교제하는 동안 공개석상에서 단지 한 두 번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가 한 번 예수께 질문한 적이 있었다. 열두 사도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실망하게 되어, 그는 이렇게 대담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자신을 공표 하시면, 어떻게 당신의 선하심을 특별히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쌍둥이는 끝까지, 재판과 십자가형과 절망의 어두운 날들까지 성실히 봉사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중심에서의 신앙을 한 번도 잃지 않았으며, (요한을 제외하고) 그의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설립을 납득할 수 없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직후에, 가족에게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으며; 그들의 업무는 끝났다. 그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천국의 전투장으로 나갈 역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우주를 지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가깝게 개인적으로 교제한 4년을, 명예롭고 복 받은 것으로 의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11. 열심당 시몬

열심당 시몬은 열한째 사도로서, **시몬 베드로**에게 선택됐다. 훌륭한 조상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고, **가버나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사도가 됐을 때 그는 스물여덟 살이었다. 격렬한 선동가였고, 또한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열심당**이라는 애국 조직에 온통 열중하기 전에는, **가버나움**에서 상인(商人)이었다.

139:9.8 (1564.2) The twins were good-natured, simple-minded helpers, and everybody loved them. Jesus welcomed these young men of one talent to positions of honor on his personal staff in the kingdom because there are untold millions of other such simple and fear-ridden souls on the worlds of space whom he likewise wishes to welcome into active and believing fellowship with himself and his outpoured Spirit of Truth. Jesus does not look down upon littleness, only upon evil and sin. James and Judas were *little*, but they were also *faithful*. They were simple and ignorant, but they were also big-hearted, kind, and generous.

139:9.9 (1564.3) And how gratefully proud were these humble men on that day when the Master refused to accept a certain rich man as an evangelist unless he would sell his goods and help the poor. When the people heard this and beheld the twins among his counselors, they knew of a certainty that Jesus wa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only a divine institution — the kingdom of heaven — could ever have been built upon such a mediocre human foundation!

139:9.10 (1564.4) Only once or twice in all their association with Jesus did the twins venture to ask questions in public. Judas was once intrigued into asking Jesus a question when the Master had talked about revealing himself openly to the world. He felt a little disappointed that there were to be no more secrets among the twelve, and he made bold to ask: “But, Master, when you do thus declare yourself to the world, how will you favor us with special manifestations of your goodness?”

139:9.11 (1564.5) The twins served faithfully until the end, until the dark days of trial, crucifixion, and despair. They never lost their heart faith in Jesus, and (save John) they were the first to believe in his resurrection.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Soon after their Master was crucified, they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nets; their work was done. They had not the ability to go on in the more complex battles of the kingdom. But they lived and died conscious of having been honored and blessed with four years of close and personal association with a Son of God, the sovereign maker of a universe.

11. SIMON THE ZEALOT

139:11.1 (1564.6) Simon Zelotes, the eleventh apostle, was chosen by Simon Peter. He was an able man of good ancestry and lived with his family at Capernaum. He was twenty-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attached to the apostles. He was a fiery agitator and was also a man who spoke much without thinking. He had been a merchant in Capernaum before he turned his entire attention to the patriotic organization of the Zealots.

열심당 시몬은 사도 집단의 기분전환과 휴식을 담당했고, 열두 사도의 놀이 생활과 오락 활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한 사도였다.

시몬의 강점은 영감(靈感) 어린 충성심이었다. 사도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결정하지 못해서 머뭇거리느 남자나 여자를 발견하면 **시몬**을 부르곤 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짖는 이 열성적인 사도가, 모든 의심을 해결하고, 모든 망설임을 없애고, 새로운 혼이 “신앙으로 인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몬의 큰 약점은 굳어버린 물질적 경향에 있었다. 그는 **유대** 민족주의자로부터 영적 기질의 국제주의자로, 자신을 빨리 전환시킬 수 없었다. 4년은, 그런 지적이고 감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에 너무 짧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그를 대했다.

시몬이 **예수**를 그토록 존경한 한 가지는, **주님**의 고요함, 곧 그의 확신, 평정(平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착성이었다.

시몬은 과격한 혁명가였고, 동요를 일으키는 두려움 없는 선동자이기도 했지만,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 가운데는 호의”를 외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기까지,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점차 완화시켰다. **시몬**은 굉장한 토론자였으며, 논쟁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따지는 지성인, 또는 **그리스인**의 지적 궤변을 상대해야 할 경우에, 그런 과제는 항상 **시몬**에게 배정됐다.

그는 타고난 반항자였고, 인습을 타파하는 자로서 훈련받았지만,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라는 더 높은 개념으로 그를 끌어 올렸다. 그는 반항적인 집단에 항상 가담했었지만, 이제는 진보하는 집단, 즉 영과 진리의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진보에 참여했다. **시몬**은 뜨겁게 충성하고 열심히 몸소 헌신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깊이 사랑했다.

예수께서는, 사업가, 노동자, 낙관론자, 비판론자, 철학자, 회의론자, 세리, 정치가, 및 애국자들과 같은 편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은 **시몬**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를 국제주의자로 만들기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사회, 경제, 및 정치 질서를 개선시키기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했지만,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다. “그것은 하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정부의 대사(大使)가 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당면한 일이 아니라, 신성한 **아버지**의 뜻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아**

139:11.2 (1564.7) Simon Zelotes was given charge of the diversions and relaxation of the apostolic group, and he was a very efficient organizer of the play life and recreational activities of the twelve.

139:11.3 (1564.8) Simon's strength was his inspirational loyalty. When the apostles found a man or woman who floundered in indecision about entering the kingdom, they would send for Simon. It usually required only about fifteen minutes for this enthusiastic advocat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n God to settle all doubts and remove all indecision, to see a new soul born into the “liberty of faith and the joy of salvation.”

139:11.4 (1565.1) Simon's great weakness was his material-mindedness. He could not quickly change himself from a Jewish nationalist to a spiritually minded internationalist. Four years was too short a time in which to make such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transformation, but Jesus was always patient with him.

139:11.5 (1565.2) The one thing about Jesus which Simon so much admired was the Master's calmness, his assurance, poise, and inexplicable composure.

139:11.6 (1565.3) Although Simon was a rabid revolutionist, a fearless firebrand of agitation, he gradually subdued his fiery nature until he became a powerful and effective preacher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Simon was a great debater; he did like to argue. And when it came to dealing with the legalistic minds of the educated Jews or the intellectual quibblings of the Greeks, the task was always assigned to Simon.

139:11.7 (1565.4) He was a rebel by nature and an iconoclast by training, but Jesus won him for the higher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had always identified himself with the party of protest, but he now joined the party of progress, unlimited and eternal progression of spirit and truth. Simon was a man of intense loyalties and warm personal devotions, and he did profoundly love Jesus.

139:11.8 (1565.5) Jesus was not afraid to identify himself with business men, laboring men, optimists, pessimists, philosophers, skeptics, publicans, politicians, and patriots.

139:11.9 (1565.6) The Master had many talks with Simon, but he never fully succeeded in making an internationalist out of this ardent Jewish nationalist. Jesus often told Simon that it was proper to want to se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s improved, but he would always add: “That is not the busines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be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Our business is to be ambassadors of a spiritual government on high, and we must not immediately concern ourselves with aught but the representation of the will and character of the

버지는 그 정부의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신임장을 지니고 있다.” **시몬**이 납득하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점차 파악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분산된 후에, **시몬**은 일시적 은퇴기간을 가졌다. 그는 문자 그대로 무너졌다. 민족주의적 애국자로서 **예수**의 교훈을 좇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에 빠졌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소망을 되찾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갔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며 일한 후에, **아프리카**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렇게 하면서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수고했다. 그는 **아프리카** 심장부에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12.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열두째 사도로서, **나다니엘**에게 선택됐다. 그는 남부 **유대지방**의 작은 도시 **가롯**에서 태어났다. 그가 소년 시절일 때 부모는 **여리고**로 이사했고, 그가 **세례 요한**의 전도와 업무에 흥미를 느끼기 전에는, 거기에 살면서 아버지의 여러 사업에 종사했다. **유다**의 부모는 **사두개인**이었으며, 그래서 아들이 **요한**의 제자로 참여하자, 그와 인연을 끊었다.

나다니엘이 **유다**를 **다리키아**에서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 생선 팔리는 사업에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사도들과 함세했을 때, 서른 살이었고 미혼이었다. 아마도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았으며, **주님**의 사도 일행 중에서 유일한 **유대지방** 사람이었다. **유다**는 개인적 강점이 될 만한 탁월한 특징을 전혀 갖지 않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화적 특징 그리고 훈련으로 말미암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훌륭한 사색가였지만, 언제나 진실하게 정직한 사색가는 아니었다. **유다**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정말로 진지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유다**를 열두 사도의 회계로 임명했는데, 그에게 아주 어울리는 자리였고, 그가 **주님**을 배신하기 직전까지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고 절묘하게 매력적인 **주님**의 인격 이외에, **유다**가 **예수**를 존경했던 유일한 특징은 없었다. **유다**는, **갈릴리인** 동역자들을 차별하는 **유대지방**의 편견을 결코 넘어서지 못했으며; 여러 면에서 **예수**까지도 마음 속으로 비판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으뜸 되는 분”이라고, 열한 명의 사도가 생각했던 완벽한 사람인 그분을, 자만심이 가득한 이 **유**

divine Father who stands at the head of the government whose credentials we bear.” It was all difficult for Simon to comprehend, but gradually he began to grasp something of the meaning of the Master’s teaching.

139:11.10 (1565.7) After the dispersion because of the Jerusalem persecutions, Simon went into temporary retirement. He was literally crushed. As a nationalist patriot he had surrendered in deference to Jesus’ teachings; now all was lost. He was in despair, but in a few years he rallied his hopes and went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139:11.11 (1565.8) He went to Alexandria and, after working up the Nile, penetrated into the heart of Africa, everywhere preaching the gospel of Jesus and baptizing believers. Thus he labored until he was an old man and feeble. And he died and was buried in the heart of Africa.

12. JUDAS ISCARIOT

139:12.1 (1565.9) Judas Iscariot, the twelfth apostle, was chosen by Nathaniel. He was born in Kerioth, a small town in southern Judea. When he was a lad, his parents moved to Jericho, where he lived and had been employed in his father’s various business enterprises until he became interested in the preaching and work of John the Baptist. Judas’s parents were Sadducees, and when their son joined John’s disciples, they disowned him.

139:12.2 (1566.1) When Nathaniel met Judas at Tarichea, he was seeking employment with a fish-drying enterprise at the lower end of the Sea of Galilee. He was thirty years of age and unmarried when he joined the apostles. He was probably the best-educated man among the twelve and the only Judean in the Master’s apostolic family. Judas had no outstanding trait of personal strength, though he had many outwardly appearing traits of culture and habits of training. He was a good thinker but not always a truly *honest* thinker. Judas did not really understand himself; he was not really sincere in dealing with himself.

139:12.3 (1566.2) Andrew appointed Judas treasurer of the twelve, a position which he was eminently fitted to hold, and up to the time of the betrayal of his Master he discharged the responsibilities of his office honestly, faithfully, and most efficiently.

139:12.4 (1566.3) There was no special trait about Jesus which Judas admired above the generally attractive and exquisitely charming personality of the Master. Judas was never able to rise above his Judean prejudices against his Galilean associates; he would even criticize in his mind many things about Jesus. Him whom eleven of the apostles looked upon as the perfect man, as the

대지방사람은 마음 속으로 감히 자주 비판했다. 정말로 그는, **예수**가 겁이 많고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주장하기를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훌륭한 사업가였다. 몇몇 사도들의 허둥거리는 사업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서라도, **예수**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의 재정문제를 관리하는 데는, 재치와 역량 그리고 각고의 헌신을 수반하는 참을성이 요구됐다. **유다**는 진정으로 훌륭한 행정가, 멀리 내다보고 유능한 재정가였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열두 사도 중에서 아무도 **유다**를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한, **가룟 유다**는 비길 데 없는 회계, 학식 많은 사람, (가끔 비판적이긴 했어도) 충성스런 사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은 **유다**를 사랑했으며; 그는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 **유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옳음을 잘 나타내 준다: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인 길이 있다.” 죄와 죽음의 경로로 향하도록 기분 좋게 조정하는 평화스런 속임수에 희생물이 되기는 무척 쉽다. **유다**는 재정적으로 **주님**과 동료 사도들에게 항상 충실했음을 기억하라. 그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유다는 현명하지 못한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나친 풍요로움을 그에게 줬고, 응석을 다 받아줬으며; 그는 버릇없는 아이였다. 자라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불쌍한 패자였다. 공정함에 대해 산만하고 왜곡된 관념을 가졌으며; 미움과 의심을 탐닉했다. 친구들의 언행을 오해하는 데 전문가였다. **유다**는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습관을 길렀다. 가치와 충성에 대한 그의 감각에 결함이 있었다.

예수께, **유다**는 신앙의 모험이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도의 약점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를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모든 창조된 존재에게, 구원과 생존의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다.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피조물의 헌신이 진지하고 전심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에, 의심스런 그 후보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의 **심판자**의 변치 않는 태도임을, 이 세상의 필사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세상의 구경꾼에게도 알리기 원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으며,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으며”; 들어오는 그 사람의 신앙 외에는 어떤 제약도, 자격조건도 없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약하고

“one altogether lovely and the chiefest among ten thousand,” this self-satisfied Judean often dared to criticize in his own heart. He really entertained the notion that Jesus was timid and somewhat afraid to assert his own power and authority.

139:12.5 (1566.4) Judas was a good business man. It required tact, ability, and patience, as well as painstaking devotion, to manage the financial affairs of such an idealist as Jesus, to say nothing of wrestling with the helter-skelter business methods of some of his apostles. Judas really was a great executive, a farseeing and able financier. And he was a stickler for organization. None of the twelve ever criticized Judas. As far as they could see, Judas Iscariot was a matchless treasurer, a learned man, a loyal (though sometimes critical) apostle, and in every sense of the word a great success. The apostles loved Judas; he was really one of them. He must have believed in Jesus, but we doubt whether he really loved the Master with a whole heart. The case of Judas illustrates the truthfulness of that saying: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the end thereof is death.” It is altogether possible to fall victim to the peaceful deception of pleasant adjustment to the paths of sin and death. Be assured that Judas was always financially loyal to his Master and his fellow apostles. Money could never have been the motive for his betrayal of the Master.

139:12.6 (1566.5) Judas was an only son of unwise parents. When very young, he was pampered and petted; he was a spoiled child. As he grew up, he had exaggerated ideas about his self-importance. He was a poor loser. He had loose and distorted ideas about fairness; he was given to the indulgence of hate and suspicion. He was an expert at misinterpretation of the words and acts of his friends. All through his life Judas had cultivated the habit of getting even with those whom he fancied had mistreated him. His sense of values and loyalties was defective.

139:12.7 (1566.6) To Jesus, Judas was a faith adventure. From the beginning the Master fully understood the weakness of this apostle and well knew the dangers of admitting him to fellowship. But it is the nature of the Sons of God to give every created being a full and equal chance for salvation and survival. Jesus wanted not only the mortals of this world but the onlookers of innumerable other worlds to know that, when doubts exist as to the sincerity and wholeheartedness of a creature's devotion to the kingdom, it is the invariable practice of the Judges of men fully to receive the doubtful candidate. The door of eternal life is wide open to all; “whosoever will may come”; there are no restrictions or qualifications save the *faith* of the one who comes.

139:12.8 (1567.1) This is just the reason why Jesus

혼동하는 사도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일을 하면서, **유다**가 끝까지 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빛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빛이 혼 안에서 어두움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천국에 대한 **예수**의 교훈에 관해서, **유다**가 지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다른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은, 영적 성품을 획득하는 데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는 만족스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유다의 개인적 실망은 점점 커졌고, 결국 분노의 희생물이 됐다. 그의 감정은 여러 번 상처 받았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주님**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의심하게 됐다. 이윽고, 비록 동역자들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일지라도,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런 사악하고 위험한 생각은, 감사하는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기 전에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유다**에게는 그런 행동이 낭비로 여겨졌으며, 자신의 공개적 반론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예수**가 묵살했을 때, 그것은 너무 버거웠다. 그 사건은, 축적돼온 미움, 상처, 원한, 편견, 질투, 그리고 일생 최대의 원한을 품게 했고, 그는 누구에게 할 지 몰랐던 복수를 하기로 작정했으며; 그의 불행한 생애의 전적으로 비열한 드라마에서, 그의 모든 악한 본성을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그가 진취적인 빛의 나라로부터, 스스로 택한 어두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건에서, **예수**가 우연히 주연(主演)이 돼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가 넘어지고 있음을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앙심 품은 인간 본성을 다룸에서는, 신(神)의 경고가 대개 아무 소용없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도덕적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큰 시험이 마침내 다가왔다. 분노의 아들은 실패했으며; 과장된 자만심의 비열한 거만함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마음의 비열한 명령에 굴복해서, 빠른 속도로 혼란과 절망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후에 **유다**는, **주**와 **주님**을 배신하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책략에 가담해서, 흉악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분노로 싹튼 불충한 배반의 계획을 열심히 꾸미는 동안, 그는 잠시 후회와 수치심을 체험했으며, 이렇게 제 정신이 있는 동안, 자기 정신 속에서 일종의 비겁한 변명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권능을 발휘해서 자신을 구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

비열하고 죄 많은 일이 모두 수행된 후에, 오

permitted Judas to go on to the very end, alway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transform and save this weak and confused apostle. But when light is not honestly received and lived up to, it tends to become darkness within the soul. Judas grew intellectually regarding Jesus' teachings about the kingdom, but he did not make progress in the acquirement of spiritual character as did the other apostles. He failed to make satisfactory personal progress in spiritual experience.

139:12.9 (1567.2) Judas became increasingly a brooder over personal disappointment, and finally he became a victim of resentment. His feelings had been many times hurt, and he grew abnormally suspicious of his best friends, even of the Master. Presently he became obsessed with the idea of getting even, anything to avenge himself, yes, even betrayal of his associates and his Master.

139:12.10 (1567.3) But these wicked and dangerous ideas did not take definite shape until the day when a grateful woman broke an expensive box of incense at Jesus' feet. This seemed wasteful to Judas, and when his public protest was so sweepingly disallowed by Jesus right there in the hearing of all, it was too much. That event determined the mobilization of all the accumulated hate, hurt, malice, prejudice, jealousy, and revenge of a lifetime, and he made up his mind to get even with he knew not whom; but he crystallized all the evil of his nature upon the one innocent person in all the sordid drama of his unfortunate life just because Jesus happened to be the chief actor in the episode which marked his passing from the progressive kingdom of light into that self-chosen domain of darkness.

139:12.11 (1567.4) The Master many times, both privately and publicly, had warned Judas that he was slipping, but divine warnings are usually useless in dealing with embittered human nature. Jesus did everything possible, consistent with man's moral freedom, to prevent Judas's choosing to go the wrong way. The great test finally came. The son of resentment failed; he yielded to the sour and sordid dictates of a proud and vengeful mind of exaggerated self-importance and swiftly plunged on down into confusion, despair, and depravity.

139:12.12 (1567.5) Judas then entered into the base and shameful intrigue to betray his Lord and Master and quickly carried the nefarious scheme into effect. During the outworking of his anger-conceived plans of traitorous betrayal, he experienced moments of regret and shame, and in these lucid intervals he faintheartedly conceived, as a defense in his own mind, the idea that Jesus might possibly exert his power and deliver himself at the last moment.

139:12.13 (1567.6) When the sordid and sinful

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 30을 받고 친구를 가볍게 팔아 넘겼던 이 변절자는, 필사 실존의 실체들로부터 도망치는 드라마에서, 급히 달려 나가 마지막 장면을 연기했다--즉 자살했다.

열한 명의 사도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배반자를 오직 동정심으로 바라봤다. 세계들은 유다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의 이름은, 방대한 우주에서 두루 회피하는 이름이 됐다.

business was all over, this renegade mortal, who thought lightly of selling his friend for thirty pieces of silver to satisfy his long-nursed craving for revenge, rushed out and committed the final act in the drama of fleeing from the realities of mortal existence — suicide.

139:12, 14 (1567.7) The eleven apostles were horrified, stunned. Jesus regarded the betrayer only with pity. The worlds have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Judas, and his name has become eschewed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제140편. 열두 사도의 임직식

⇨ 139

유랜시아 책

141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40편
열두 사도의 임직식

섹션

소개

1. 예비 훈육
2. 임직식
3. 임직식 설교
4.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5.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6. 임직식이 있던 날 저녁
7. 임직식 다음 주간
8.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9. 봉헌식이 있던 날
10. 봉헌식 이후의 저녁

소개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정오 직전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대중에게 전할 설교자로 임명하기 위해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열두 사도는 어느 때든지 부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해변으로부터 멀리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잡이 도구를 수선하면서 해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불렀는데, 먼저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큰 소리로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해서 불렀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불러서 열두 명이 다 모이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 가서 그들의 공식 임직식{任職式}을 준비하도록 계속 지시했다.

이번에는 열두 사도 모두 침묵했으며, 베드

PAPER 140

THE ORDINATION OF THE TWELVE

SECTIONS

Introduction

1. Preliminary Instruction
2. The Ordination
3. The Ordination Sermon
4.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5. Fatherly and Brotherly Love
6. The Evening of the Ordination
7. The Week Following the Ordination
8. Thursday Afternoon on the Lake
9. The Day of Consecration
10. The Evening after the Consecration

INTRODUCTION

140:0.1 (1568.1) JUST before noon on Sunday, January 12, A.D. 27, Jesus called the apostles together for their ordination as public preach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twelve were expecting to be called almost any day; so this morning they did not go out far from the shore to fish. Several of them were lingering near the shore repairing their nets and tinkering with their fishing paraphernalia.

140:0.2 (1568.2) As Jesus started down the seashore calling the apostles, he first hailed Andrew and Peter, who were fishing near the shore; next he signaled to James and John, who were in a boat near by, visiting with their father, Zebedee, and mending their nets. Two by two he gathered up the other apostles, and when he had assembled all twelve, he journeyed with them to the highlands north of Capernaum, where he proceeded to instruct them in preparation for their formal ordination.

140:0.3 (1568.3) For once all twelve of the apostles

로조차 목상하는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주님**을 대변하는 신성시되는 업무에 일생을 바치고 집단으로 봉헌하는, 일종의 엄숙한 예식에 참여하려고 **주님**과 함께 떠나고 있었다.

1. 예비 훈육

예수께서는 공식 임직식에 앞서, 열두 사도가 자기 주위에 앉아 그들에게 말씀했다: “형제들아, 천국의 때가 도래했다. 나는 너희를 천국의 대사로써 **아버지**께 바치려고 여기에 따로 불렀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나라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을 회당에서 들었다. 너희는 각자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들에서 나와 함께 일한 후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좀 더 말하고자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자녀의 마음 속에 곧 세우시게 될 새 나라는, 영구한 통치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이 통치에 끝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내 **아버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올 많은 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겠지만, 인간 자녀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영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런 새로운 형제관계에 참여하기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절할 것이다.

“이 나라의 권능은,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부{富}의 능력에 있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신성한 영의 영광에 있을 것인데, 그 영이 이 하늘 나라의 거대한 시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을 가르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올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지배하는 사랑의 형제관계이며, 그들은: 땅에는 평화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라고 외칠 것이다. 너희가 곧 선포하러 나가게 될 이 나라는, 모든 시대의 선한 사람들이 바라던 바요, 온 땅의 소망이며, 모든 선지자가 받은 지혜로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애들아, 너희에게는, 그리고 너희를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모든 이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신앙만이 너희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면서 계속 상승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겐 전할 메시지는: 먼저 **하나**

were silent; even Peter was in a reflective mood. At last the long-awaited-for hour had come! They were going apart with the Master to participate in some sort of solemn ceremony of personal consecration and collective dedication to the sacred work of representing their Master in the proclamation of the coming of his Father's kingdom.

1. PRELIMINARY INSTRUCTION

140:1.1 (1568.4) Before the formal ordination service Jesus spoke to the twelve as they were seated about him: “My brethren, this hour of the kingdom has come. I have brought you apart here with me to present you to the Father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Some of you heard me speak of this kingdom in the synagogue when you first were called. Each of you has learned more about the Father's kingdom since you have been with me working in the cities around about the Sea of Galilee. But just now I have something more to tell you concerning this kingdom.

140:1.2 (1568.5) “The new kingdom which my Father is about to set up in the hearts of his earth children is to be an everlasting dominion. There shall be no end of this rule of my Father in the hearts of those who desire to do his divine will. I declare to you that my Father is not the God of Jew or gentile. Man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to sit down with us in the Father's kingdom, while many of the children of Abraham will refuse to enter this new brotherhood of the rule of the Father's spirit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140:1.3 (1568.6) “The power of this kingdom shall consist, not in the strength of armies nor in the might of riches, but rather in the glory of the divine spirit that shall come to teach the minds and rule the hearts of the reborn citizens of this heavenly kingdom, the sons of God. This is the brotherhood of love wherein righteousness reigns, and whose battle cry shall b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to all men. This kingdom, which you are so soon to go forth proclaiming, is the desire of the good men of all ages, the hope of all the earth, and the fulfillment of the wise promises of all the prophets.

140:1.4 (1569.1) “But for you, my children, and for all others who would follow you into this kingdom, there is set a severe test. Faith alone will pass you through its portals, but you must bring forth the fruits of my Father's spirit if you would continue to ascend in the progressive life of the divine fellowship. Verily, verily, I say to you, not every one who says,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rather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140:1.5 (1569.2) “Your message to the world shall be:

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들을 찾으면,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다른 것도 함께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 **아버지**의 이 나라는, 권력을 밖으로 보여 주거나 꾀사나운 과시를 통해서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전파하러 나갈 때, '그것이 여기 있다' 또는 '그것이 저기 있다'고 해서 안 되는데, 너희가 전파하는 이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크게 될 자는 누구든지,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며;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시중드는 자가 되라.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아들,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하는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할 것이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 가운데 일부는, 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즉 평범한 열두 명으로 이뤄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배가(倍加)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다. 그리고 너희 정신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는 않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듯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을 너희 혼에 맡기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2. 임직식

예수께서는, 천국에 관해 선언한 말씀을 방금 들은 열두 필사자에게,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도록 지시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부터 시작해서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각 사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그는 두 팔을 펴고 기도했다:

"**아버지**여, 내 사자인 이 사람들을 이제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나아왔듯이, 나를 대신하도록 내보내기 위해, 이 세상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열둘을 택했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사랑하심같이, 저들도 사랑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도래하는 나라의 모든 일을 저들 손에 맡겼으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 뜻이라면, 내가 천국을 위한 저들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in finding these, all other things essential to eternal survival shall be secured therewith. And now would I make it plain to you that this kingdom of my Father will not come with an outward show of power or with unseemly demonstration. You are not to go hence 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saying, 'it is here' or 'it is there,' for this kingdom of which you preach is God within you.

140:1.6 (1569.3) "Whosoever would become great in my Father's kingdom shall become a minister to all; and whosoever would be first among you, let him become the server of his brethren. But when you are once truly received as citizens in the heavenly kingdom, you are no longer servants but sons, sons of the living God. And so shall this kingdom progress in the world until it shall break down every barrier and bring all men to know my Father and believe in the saving truth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Even now is the kingdom at hand, and some of you will not die until you have seen the reign of God come in great power.

140:1.7 (1569.4) "And this which your eyes now behold, this small beginning of twelve commonplace men, shall multiply and grow until eventually the whol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praise of my Father. And it will not be so much by the words you speak as by the lives you live that men will know you have been with me and have learned of the realities of the kingdom. And while I would lay no grievous burdens upon your minds, I am about to put upon your souls the solemn responsibility of representing me in the world when I shall presently leave you as I now represent my Father in this life which I am living in the flesh."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tood up.

2. THE ORDINATION

140:2.1 (1569.5) Jesus now instructed the twelve mortals who had just listened to his declaration concerning the kingdom to kneel in a circle about him. Then the Master placed his hands upon the head of each apostle, beginning with Judas Iscariot and ending with Andrew. When he had blessed them, he extended his hands and prayed:

140:2.2 (1569.6) "My Father, I now bring to you these men, my messengers. From among our children on earth I have chosen these twelve to go forth to represent me as I came forth to represent you. Love them and be with them as you have loved and been with me. And now, my Father, give these men wisdom as I place all the affairs of the coming kingdom in their hands. And I would, if it is your will, tarry on earth a time to help them in their labors for the kingdom. And again, my Father, I thank you for these men, and I commit them to your keeping while I go on to finish the work you

일을 끝내는 동안, 저들을 **아버지**의 보호에 맡깁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사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 얼마 동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한 명씩 **예수**를 포옹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천상의 존재 무리가 --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신성한 형제관계의 일을 인간 정신이 지휘하도록 맡기는-- 이 엄숙하고 성스런 광경을 내려다보고는 동안, 그곳은 깊은 침묵에 싸여 있었다.

3. 임직식 설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독특한 부류의 사람이 됐다. 너희는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무지한 피조물 가운데서 또 다른 나라, 즉 하늘 나라의 계몽된 시민으로서 있다. 너희가 이 시간 이전처럼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제부터는 더 나은 삶의 영광을 맞본 자로서,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그 세상의 **주권자**의 대사로 이 세상에 다시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 제자보다 선생에게 더 많이 기대하며; 종보다 주인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하늘 나라 시민에게는, 세속 통치에 속하는 시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 가운데 더러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 뽑혔으며; 이 세상에서 나의 대리인인 너희에게는, 공간의 세계들에서 필사자 생활에 대한 내 이상{理想}을 반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증하는, 그 교훈과 실행을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영적으로 포로 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내 자녀를 발견하거든, 용기를 북돋도록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의 보물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
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

have given me to do.”

140:2.3 (1570.1) When Jesus had finished praying, the apostles remained each man bowed in his place. And it was many minutes before even Peter dared lift up his eyes to look upon the Master. One by one they embraced Jesus, but no man said aught. A great silence pervaded the place while a host of celestial beings looked down upon this solemn and sacred scene — the Creator of a universe placing the affairs of the divine brotherhood of man under the direction of human minds.

3. THE ORDINATION SERMON

140:3.1 (1570.2) Then Jesus spoke, saying: “Now that you are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you have thereby become a class of men separate and distinct from all other men on earth. You are not now as men among men but as the enlightened citizens of another and heavenly country among the ignorant creatures of this dark world. It is not enough that you live as you were before this hour, but henceforth must you live as those who have tasted the glories of a better life and have been sent back to earth as ambassadors of the Sovereign of that new and better world. Of the teacher more is expected than of the pupil; of the master more is exacted than of the servant. Of the citizens of the heavenly kingdom more is required than of the citizens of the earthly rule. Some of the things which I am about to say to you may seem hard, but you have elected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even as I now represent the Father; and as my agents on earth you will be obligated to abide by those teachings and practices which are reflective of my ideals of mortal living on the worlds of space, and which I exemplify in my earth life of revealing the Father who is in heaven.

140:3.2 (1570.3) “I send you forth to proclaim liberty to the spiritual captives, joy to those in the bondage of fear, and to heal the sick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When you find my children in distress, speak encouragingly to them, saying:

140:3.3 (1570.4)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the humble, for theirs are the treasures of the kingdom of heaven.

140:3.4 (1570.5) “Happy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140:3.5 (1570.6) “Happy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140:3.6 (1570.7) “Happy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140:3.7 (1570.8) “And even so speak to my children

는 이 추가적인 말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기뻐하는 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항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행복하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즉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된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이렇게 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취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은, 나를 대신하고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로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사자{使者}로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의에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육신적 힘에 의존하지 마라. 이웃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 가운데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 불의를 기꺼이 견뎌라. 고통과 빈곤을 당하는 모든 이를 친절과 자비로 보살피라.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 또한 그들에게 행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고루 비취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大使}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미래에 너희도 완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these further words of spiritual comfort and promise:

140:3.8 (1570.9) “Happy are they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Happy are they who weep, for they shall receive the spirit of rejoicing.

140:3.9 (1570.10) “Happy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140:3.10 (1570.11) “Happy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140:3.11 (1570.12) “Happy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you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140:3.12 (1570.13) “My brethren, as I send you forth,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salt with a saving savor. But if this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foot of men.

140:3.13 (1570.1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upon a hill cannot be hid.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be led to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0:3.14 (1571.1) “I am sending you out into the world to represent me and to act as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and as you go forth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put your trust in the Father whose messengers you are. Do not forcibly resist injustice; put not your trust in the arm of the flesh. If your neighbor smite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Be willing to suffer injustice rather than to go to law among yourselves. In kindness and with mercy minister to all who are in distress and in need.

140:3.15 (1571.2)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And whatsoever you believe that I would do to men, do you also to them.

140:3.16 (1571.3) “Your Father in heaven makes the sun to shine on the evil as well as upon the good; likewise he sends rain on the just and the unjust. You are the sons of God; even more, you are now the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Be merciful, even as God is merciful, and in the eternal future of the kingdom you shall be perfect, even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140:3.17 (1571.4) “You are commissioned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임명됐다. 이 세상에서 일생이 끝나면, 너희는 모두 자비를 기대할 것이므로;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육신 속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 하나를 뽑고자 하는 잘못을 범치 마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진리를 분명히 분별하며; 담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 그러면 너희가 내 사도와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살아있는 진리의 분명한 빛 속에서 너희 자신이 걸어야 한다. 너희가 천국의 어떤 일을 하든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라고,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의 보물을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지 않게 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탐욕스런 이리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거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마침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줄 때, 그 동기로 판단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내면적 갈망과 진지한 의도를 심사하신다.

“천국 심판이 있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으며; 가짜 선생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위탁임을 진지하게 수행한 자마다, 나의 섬김 속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는 넓은 입구를 발견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그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 질 무렵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예수**께 질문하지 않았다.

4.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위 “**산상수훈**(山上垂訓)”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유익한 교훈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준 임직식 훈시였

men, not to judge them. At the end of your earth life you will all expect mercy; therefore do I require of you during your mortal life that you show mercy to all of your brethren in the flesh. Make not the mistake of trying to pluck a mote out of your brother's eye when there is a beam in your own eye. Having first cast the beam out of your own eye, you can the better see to cast the mote out of your brother's eye.

140:3.18 (1571.5) “Discern the truth clearly; live the righteous life fearlessly; and so shall you be my apostles and my Father's ambassadors. You have heard it said: ‘If the blind lead the blind, they both shall fall into the pit.’ If you would guide others into the kingdom, you must yourselves walk in the clear light of living truth. In all the business of the kingdom I exhort you to show just judgment and keen wisdom. Present not that which is holy to dogs, neither 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lest they trample your gems under foot and turn to rend you.

140:3.19 (1571.6) “I warn you against false prophets who will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while on the inside they are as ravening wolves.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Do men gather grapes from thorns or figs from thistles? Even so, every good tree brings forth good fruit, but the corrupt tree bears evil fruit. A good tree cannot yield evil fruit, neither can a corrupt tree produce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ring forth good fruit is presently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In gaining an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it is the motive that counts. My Father looks into the hearts of men and judges by their inner longings and their sincere intentions.

140:3.20 (1571.7) “In the great day of the kingdom judgment, many will say to me,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by your name do many wonderful works?’ But I will be compelled to say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are false teachers.’ But every one who hears this charge and sincerely executes his commission to represent me before men even as I have represented my Father to you, shall find an abundant entrance into my service and into the kingdom of the heavenly Father.”

140:3.21 (1571.8) Never before had the apostles heard Jesus speak in this way, for he had talked to them as one having supreme authority.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bout sundown, but no man asked Jesus a question.

4.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140:4.1 (1572.1) The so-called “Sermon on the Mount” is not the gospel of Jesus. It does contain much helpful instruction, but it was Jesus' ordination charge to the twelve apostles. It was the Master's

다. 그것은, **주님**께서 감동적이고 완전하게 **아버지**를 보여줬던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히 일러준 위탁임무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즉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시대에는 소금이 귀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사용됐다. 현대어에서 ‘봉급[salary]’이라는 말은 소금[salt]에서 유래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낼 뿐 아니라 방부제[防腐劑]이기도 하다. 소금은 다른 것에 맛을 더해주며, 그렇게 자신을 소모시키면서 봉사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취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반면, “눈부시게”해서 혼란시키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매우 빛나게 해서,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롭고 경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훈계를 받았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의 쏠리지 않을 만큼 아주 밝게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직업조차, 이런 생명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사체”로 활용될 수 있다.

강인한 성품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지 않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을 실제로 행함에서 기원된다. 이타심[利他心]은 인간적 위대함의 표지[標識]다. 경배 드리고 봉사함으로, 자아_실현의 최고 수준이 이뤄진다.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격은 근본적으로 변함없으며, 변화하는 것은--곧 성장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이다. 현대 종교의 주된 오류는 소극주의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도덕적 가치는, 단순한 억압--곧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복종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종교적 생활을 위한 무가치한 동기다. 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고, 사람의 형제관계를 향상시킬 때에만 정당하다.

효과적인 생활철학은, 시공우주 통찰력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의 총합[總合]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본능적 충동은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반면, 그런 충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본성은 변경될 수 있고, 성품은 개선될 수 있다. 강인한 성품 속에서는, 감정적 반응들이 모아지고 협조되며, 그렇게 해서 통합된

personal commission to those who were to go on preaching the gospel and aspiring to represent him in the world of men even as he was so eloquently and perfectly representative of his Father.

140:4.2 (1572.2)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salt with a saving savor. But if this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foot of men.”

140:4.3 (1572.3) In Jesus' time salt was precious. It was even used for money. The modern word “salary” is derived from salt. Salt not only flavors food, but it is also a preservative. It makes other things more tasty, and thus it serves by being spent.

140:4.4 (1572.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be led to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0:4.5 (1572.5) While light dispels darkness, it can also be so “blinding” as to confuse and frustrate. We are admonished to let our light so shine that our fellows will be guided into new and godly paths of enhanced living. Our light should so shine as not to attract attention to self. Even one's vocation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reflector” for the dissemination of this light of life.

140:4.6 (1572.6) Strong characters are not derived from *not* doing wrong but rather from actually doing right. Unselfishness is the badge of human greatness. The highest levels of self-realization are attained by worship and service. The happy and effective person is motivated, not by fear of wrongdoing, but by love of right doing.

140:4.7 (1572.7)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Personality is basically changeless; that which changes — grows — is the moral character. The major error of modern religions is negativism. The tree which bears no frui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Moral worth cannot be derived from mere repression — obeying the injunction “Thou shalt not.” Fear and shame are unworthy motivations for religious living. Religion is valid only when it reveals the fatherhood of God and enhances the brotherhood of men.

140:4.8 (1572.8) An effective philosophy of living is formed by a combination of cosmic insight and the total of one's emotional reactions to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Remember: While inherited urges cannot be fundamentally modified, emotional responses to such urges can be changed; therefore the moral nature can be modified, character can be improved. In the strong

인격이 형성된다. 통합의 결핍은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고 불행을 야기한다.

훌륭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정처 없고 무익하게 되며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열두 사도의 임직식에서 하신 **예수**의 설교는 탁월한 인생철학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체험으로 신앙을 단련하라고 권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지적 동의, 경솔한 믿음, 그리고 확립된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했다.

교육은, 우리의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곧 발견하는) 기법이어야 하며, 행복은, 감정적 만족을 주는 이런 강화된 기법들의 결과적 총합(總合)이다. 행복은 환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지만, 즐거운 주위 환경이 행복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필사자는 누구나, 완벽한 인격자가 되기를,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정말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런 달성은 결국 “우주는 진실로 아버지 같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5.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으로부터 **마지막 만찬** 설교에 이르기까지, 추종자들에게 **형제**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타내도록 가르쳤다. 형제의 사랑은,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동료 필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두 가지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두 인격--곧 인간과 신--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그는 사람의 **창조주**이고 우주에서 사람의 **아버지**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필사자를 형제로 사랑한다--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표현 불가능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를 추종자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같이 되도록--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심히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듯 그들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곧 비로소 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주게 되기를--기대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중에,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새 개념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감정적 태도와 연관된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한계와 비교

character emotional responses are integrated and co-ordinated, and thus is produced a unified personality. Deficient unification weakens the moral nature and engenders unhappiness.

140:4.9 (1572.9) Without a worthy goal, life becomes aimless and unprofitable, and much unhappiness results. Jesus' discourse at the ordination of the twelve constitutes a master philosophy of life. Jesus exhorted his followers to exercise experiential faith. He admonished them not to depend on mere intellectual assent, credulity, and established authority.

140:4.10 (1573.1) Education should be a technique of learning (discovering) the better methods of gratifying our natural and inherited urges, and happiness is the resulting total of these enhanced techniques of emotional satisfactions. Happiness is little dependent on environment, though pleasing surroundings may greatly contribute thereto.

140:4.11 (1573.2) Every mortal really craves to be a complete person,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and such attainment is possible because in the last analysis the “universe is truly fatherly.”

5. FATHERLY AND BROTHERLY LOVE

140:5.1 (1573.3)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to the discourse of the Last Supper, Jesus taught his followers to manifest *fatherly* love rather than *brotherly* love. Brotherly love woul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that would be adequate fulfillment of the “golden rule.” But fatherly affection would require that you should love your fellow mortals as Jesus loves you.

140:5.2 (1573.4) Jesus loves mankind with a dual affection. He lived on earth as a twofold personality — human and divine. As the Son of God he loves man with a fatherly love — he is man's Creator, his universe Father. As the Son of Man, Jesus loves mortals as a brother — he was truly a man among men.

140:5.3 (1573.5) Jesus did not expect his followers to achieve an impossible manifestation of brotherly love, but he did expect them to so strive to be like God —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 that they could begin to look upon man as God looks upon his creatures and therefore could begin to love men as God loves them — to show forth the beginnings of a fatherly affection. In the course of these exhortations to the twelve apostles, Jesus sought to reveal this new concept of *fatherly love* as it is related to certain emotional attitudes concerned in making numerous environmental social adjustments.

140:5.4 (1573.6) The Master introduced this

해서, 아버지다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초월적인 최상의 네 가지 반응을 이어서 묘사하게 될 전주곡(前奏曲)으로서, 신앙의 네 가지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 중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해 말씀했다. 영을 식별하는 그런 필사자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려고 애쓸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이타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애통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형제의 애정을 초월하는 헌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지복(至福)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도덕적 성품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두려움과 분노는, 성품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대한 설교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른은 증진된 행복이라는 결실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후로, 재산의 소유 관념과 행복이 너무 흔히 관련돼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영의 부유함--곧 자만심--을 느꼈고, 세리는 “영의 가난함”--곧 겸손--을 느꼈다. 전자는 자기 충족적이었고, 후자는 배우려는 자세이고 진리를 추구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풍요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런 진리 탐구자는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 없으며; 지금 보상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그런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만이 항상 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신성한 권능을 찾고 영적 능력을 추구한다. 그러나 영적 재능에 대한 욕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의 금식은 4, 5일 지나면 위험해지며;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체험으로 얻는 정의(正義)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는 역동적 사랑이다--곧 아버지답고 형제다운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계속 굶주릴 수 있겠는가?

momentous discourse by calling attention to four *faith* attitudes as the prelude to the subsequent portrayal of his four transcendent and supreme reactions of fatherly love in contrast to the limitations of mere brotherly love.

140:5.5 (1573.7) He first talked about those who were poor in spirit, hungered after righteousness, endured meekness, and who were pure in heart. Such spirit-discerning mortals could be expected to attain such levels of divine selflessness as to be able to attempt the amazing exercise of *fatherly* affection; that even as mourners they would be empowered to show mercy, promote peace, and endure persecutions, and throughout all of these trying situations to love even unlovely mankind with a fatherly love. A father's affection can attain levels of devotion that immeasurably transcend a brother's affection.

140:5.6 (1573.8) The faith and the love of these beatitudes strengthen moral character and create happiness. Fear and anger weaken character and destroy happiness. This momentous sermon started out upon the note of happiness.

140:5.7 (1573.9) 1.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 the humble.” To a child, happiness is the satisfaction of immediate pleasure craving. The adult is willing to sow seeds of self-denial in order to reap subsequent harvests of augmented happiness. In Jesus' times and since, happiness has all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the idea of the possession of wealth. In the story of the Pharisee and the publican praying in the temple, the one felt rich in spirit — egotistical; the other felt “poor in spirit” — humble. One was self-sufficient; the other was teachable and truth-seeking. The poor in spirit seek for goals of spiritual wealth — for God. And such seekers after truth do not have to wait for rewards in a distant future; they are rewarded *now*. They find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their own hearts, and they experience such happiness *now*.

140:5.8 (1574.1) 2. “Happy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Only those who feel poor in spirit will ever hunger for righteousness. Only the humble seek for divine strength and crave spiritual power. But it is most dangerous to knowingly engage in spiritual fasting in order to improve one's appetite for spiritual endowments. Physical fasting becomes dangerous after four or five days; one is apt to lose all desire for food. Prolonged fasting, either physical or spiritual, tends to destroy hunger.

140:5.9 (1574.2) Experiential righteousness is a pleasure, not a duty. Jesus' righteousness is a dynamic love — fatherly-brotherly affection. It is not the negative or thou-shalt-not type of righteousness. How could one ever hunger for something negative — something “not to do”?

팔복{八福}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어린 정신에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성숙한 정신은 그 중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의 태도다--“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은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극을 받는다. 온유함은 신성한 인도에 반항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고, 방대한 우주를 상속받았다.

4.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복수심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 특성이 아니다. 순결을 논할 때, **예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성적{性的} 태도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보다는, 사람이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의{信義}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의를, 그리고 아버지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로 하여금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 신의를 더 고려했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반드시 거리가 멀다. 아버지다운 사랑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고, 반드시 사람 안에서 최선을 찾으며; 그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본다는 것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획득함을 뜻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은 **조율사**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식{意識}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신분에 대한 확신을 확인받고, 육신의 형제들 각자를 형제로서--곧 형제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곧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훈계는 아이에게도 가르치기가 쉽다. 아이들은 꾸밈없이 쉽게 믿으며, 부모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를 대할 때,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삼가라. 그들이 자신의 이상적 인물을 선정하고, 자신의 평생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분투의 주된 목적--곧 완전성--의 실현, 심지어 신{神}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까지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에게 항상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열두 사도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쓸모 있는 성취였을지 모르며; 형제다운 사랑의 성취를 가리켰을지 모른다. 오히려, 그가 그들을 사랑해 온 것처럼--곧 형제다운 애정뿐 아니라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도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네 가지 최고 반응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설명했다:

140:5.10 (1574.3) It is not so easy to teach a child mind these first two of the beatitudes, but the mature mind should grasp their significance.

140:5.11 (1574.4) 3. “Happy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Genuine meekness has no relation to fear. It is rather an attitude of man co-operating with God — “Your will be done.” It embraces patience and forbearance and is motivated by an unshakable faith in a lawful and friendly universe. It masters all temptations to rebel against the divine leading. Jesus was the ideal meek man of Urantia, and he inherited a vast universe.

140:5.12 (1574.5) 4. “Happy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Spiritual purity is not a negative quality, except that it does lack suspicion and revenge. In discussing purity, Jesus did not intend to deal exclusively with human sex attitudes. He referred more to that faith which man should have in his fellow man; that faith which a parent has in his child, and which enables him to love his fellows even as a father would love them. A father's love need not pamper, and it does not condone evil, but it is always anticynical. Fatherly love has singleness of purpose, and it always looks for the best in man; that is the attitude of a true parent.

140:5.13 (1574.6) To see God — by faith — means to acquire true spiritual insight. And spiritual insight enhances Adjuster guidance, and these in the end augment God-consciousness. And when you know the Father, you are confirmed in the assurance of divine sonship, and you can increasingly love each of your brothers in the flesh, not only as a brother — with brotherly love — but also as a father — with fatherly affection.

140:5.14 (1574.7) It is easy to teach this admonition even to a child. Children are naturally trustful, and parents should see to it that they do not lose that simple faith. In dealing with children, avoid all deception and refrain from suggesting suspicion. Wisely help them to choose their heroes and select their lifework.

140:5.15 (1574.8) And then Jesus went on to instruct his followers in the realization of the chief purpose of all human struggling — perfection — even divine attainment. Always he admonished them: “Be you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He did not exhort the twelve to love their neighbors as they loved themselves. That would have been a worthy achievement; it would have indicated the achievement of brotherly love. He rather admonished his apostles to love men as he had loved them — to love with a *fatherly* as well as a brotherly affection. And he illustrated this by pointing out four supreme reactions of fatherly love:

1.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고의 논리로 따져도, 결코 애통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적이거나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인정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했다. 부드러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정심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가치 있는 속성이다. 남자다워지기 위해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용감한 남자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남자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이나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인간의 필요를 헤아리고 이에 민감한 것은, 순수하고 영구적인 행복을 창조하며, 게다가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 증오, 및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한다.

2.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비란,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진실한 우정을--곧 연민을--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곧 최상의 아버지다움이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여러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한 자녀를 고통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충동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대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청중은,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종류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평화다. 개인의 평화가 인격을 완성한다. 사회의 평화는, 두려움, 탐욕, 및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적 대립과 민족적 의심과 전쟁을 막는다. 화평케 하는 것이, 불신과 의심의 해결책이다.

아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의 역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며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언젠가 말씀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40:5.16 (1575.1) 1. “Happy are they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So-called common sense or the best of logic would never suggest that happiness could be derived from mourning. But Jesus did not refer to outward or ostentatious mourning. He alluded to an emotional attitude of tenderheartedness. It is a great error to teach boys and young men that it is unmanly to show tenderness or otherwise to give evidence of emotional feeling or physical suffering. Sympathy is a worthy attribute of the male as well as the female. It is not necessary to be calloused in order to be manly. This is the wrong way to create courageous men. The world's great men have not been afraid to mourn. Moses, the mourner, was a greater man than either Samson or Goliath. Moses was a superb leader, but he was also a man of meekness. Being sensitive and responsive to human need creates genuine and lasting happiness, while such kindly attitudes safeguard the soul from the destructive influences of anger, hate, and suspicion.

140:5.17 (1575.2) 2. “Happy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Mercy here denotes the height and depth and breadth of the truest friendship — loving-kindness. Mercy sometimes may be passive, but here it is active and dynamic — supreme fatherliness. A loving parent experiences little difficulty in forgiving his child, even many times. And in an unspoiled child the urge to relieve suffering is natural. Children are normally kind and sympathetic when old enough to appreciate actual conditions.

140:5.18 (1575.3) 3. “Happy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Jesus' hearers were longing for military deliverance, not for peacemakers. But Jesus' peace is not of the pacific and negative kind. In the face of trials and persecutions he said, “My peace I leave with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This is the peace that prevents ruinous conflicts. Personal peace integrates personality. Social peace prevents fear, greed, and anger. Political peace prevents race antagonisms, national suspicions, and war. Peacemaking is the cure of distrust and suspicion.

140:5.19 (1575.4) Children can easily be taught to function as peacemakers. They enjoy team activities; they like to play together. Said the Master at another time: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shall find it.”

140:5.20 (1575.5) 4. “Happy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you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평화 다음에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와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다운 사랑은 이런 모든 일--곧 형제다운 사랑으로서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박해의 최종 수확물은 항상 진보였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도전에 반드시 반응한다. 젊은이는 늘 기꺼이 “도전에 응한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희생하기를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지복(至福)은 율법이 아니라--곧 윤리와 의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에 기초를 뒀음이 드러난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아주는 것--곧 불의에 대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기뻐한다.

6. 임직식이 있던 날 저녁

일요일 저녁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부터 **세베대**의 집에 도착한 **예수**와 열두 사도는 간소한 식사를 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열두 사도는 그들끼리 이야기했다. 간단한 회담을 마친 후에 쌍둥이 형제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안드레**가 **예수**를 찾아 나섰고, **예수**를 만나게 되자 말했다: “**주님**, 천국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내 형제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함께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정원으로 들어간 후에, 사도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새 가르침을 옛 가르침 위에 직접 세우려하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내가 단언하는데,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기꺼이 내 가르침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천국의 새 복음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에 끼워 맞출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가 아니라 오히려 충족시키려고, 즉 발전시키고 명백히 밝히려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구제(救濟), 기도, 및 금식으로 **아버지**의 호의를 얻으려는 이들의 의(義)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의를 요구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사랑, 자비, 및 진리로 이뤄진

140:5.21 (1575.6) So often persecution does follow peace. But young people and brave adults never shun difficulty or danger.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And a fatherly love can freely do all these things — things which brotherly love can hardly encompass. And progress has always been the final harvest of persecution.

140:5.22 (1575.7) Children always respond to the challenge of courage. Youth is ever willing to “take a dare.” And every child should early learn to sacrifice.

140:5.23 (1575.8) And so it is revealed that the beatitudes of the Sermon on the Mount are based on faith and love and not on law — ethics and duty.

140:5.24 (1575.9) Fatherly love delights in returning good for evil — doing good in retaliation for injustice.

6. THE EVENING OF THE ORDINATION

140:6.1 (1576.1) Sunday evening, on reaching the home of Zebedee from the highlands north of Capernaum, Jesus and the twelve partook of a simple meal. Afterward, while Jesus went for a walk along the beach, the twelve talked among themselves. After a brief conference, while the twins built a small fire to give them warmth and more light, Andrew went out to find Jesus, and when he had overtaken him, he said: “Master, my brethren are unable to comprehend what you have said about the kingdom. We do not feel able to begin this work until you have given us further instruction. I have come to ask you to join us in the garden and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your words.” And Jesus went with Andrew to meet with the apostles.

140:6.2 (1576.2) When he had entered the garden, he gathered the apostles around him and taught them further, saying: “You find it difficult to receive my message because you would build the new teaching directly upon the old, but I declare that you must be reborn. You must start out afresh as little children and be willing to trust my teaching and believe in Go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cannot be made to conform to that which is. You have wrong ideas of the Son of Man and his mission on earth.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I have come to set aside the law and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to enlarge and illuminate. I come not to transgress the law but rather to write these new commandments on the tablets of your hearts.

140:6.3 (1576.3) “I demand of you a righteousness that shall exceed the righteousness of those who seek to obtain the Father’s favor by almsgiving, prayer, and fasting. If you would enter the kingdom, you

의--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진지한 욕구--를 지녀야 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당신에게 새 계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행위 뒤에 감춰진 동기를 본다. 너희에게 단언하는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자기 마음에 증오를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심판받을 위험이 있다. 너희는 동료를 그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마음 속에서 그 여자를 간음했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사람을 오직 그들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의도와 실제 욕구에 따라서 그들을 자비롭게 판결하신다.”

예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해 계속 말씀하려고 할 때, **야고보 세베대**가 끼어들면서 물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혼{離婚}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말씀했다: “나는 법{法}을 제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몽시키러 왔다. 나는 이 세상 나라들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습성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영들을 해방시키고 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 이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모세**는 이런 일을 허락했으나, **아담** 시대에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 나누게 한 후에, 말씀을 계속했다: “너희는 모든 필사자의 행위에 두 가지 관점--곧 인간의 관점과 신성한 관점; 육신의 방법과 영의 방법; 시간적 평가와 영원의 관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열두 사도는,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납득할 수는 없었음에도, 이 설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해 비틀거리려 하며; 내 가르침의 참 뜻을 느리게 식별한다. 너희는 내 사자들임을; 내가 영으로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 삶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 입었음을, 다시 명심하라. 너희는 나

must have a righteousness that consists in love, mercy, and truth — the sincere desire to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140:6.4 (1576.4) Then said Simon Peter: “Master, if you have a new commandment, we would hear it. Reveal the new way to us.” Jesus answered Peter: “You have heard it said by those who teach the law: ‘You shall not kill; that whosoever kills shall be subject to judgment.’ But I look beyond the act to uncover the motive. I declare to you that every 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is in danger of condemnation. He who nurses hatred in his heart and plans vengeance in his mind stands in danger of judgment. You must judge your fellows by their deeds; the Father in heaven judges by the intent.

140:6.5 (1576.5) “You have heard the teachers of the law sa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that every man who looks upon a woman with intent to lust afte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You can only judge men by their acts, but my Father looks into the hearts of his children and in mercy adjudges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s and real desires.”

140:6.6 (1576.6) Jesus was minded to go on discussing the other commandments when James Zebedee interrupted him, asking: “Master, what shall we teach the people regarding divorcement? Shall we allow a man to divorce his wife as Moses has directed?” And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said: “I have not come to legislate but to enlighten. I have come not to reform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rather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It is not the will of the Father that I should yield to the temptation to teach you rules of government, trade, or social behavior, which, while they might be good for today, would be far from suitable for the society of another age. I am on earth solely to comfort the minds, liberate the spirits, and save the souls of men. But I will say, concerning this question of divorcement, that, while Moses looked with favor upon such things, it was not so in the days of Adam and in the Garden.”

140:6.7 (1577.1) After the apostles had talked among themselves for a short time, Jesus went on to say: “Always must you recognize the two viewpoints of all mortal conduct —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ways of the flesh and the way of the spirit; the estimate of time and the viewpoint of eternity.” And though the twelve could not comprehend all that he taught them, they were truly helped by this instruction.

140:6.8 (1577.2) And then said Jesus: “But you will stumble over my teaching because you are wont to interpret my message literally; you are slow to discern the spirit of my teaching. Again must you remember that you are my messengers; you are beholden to live your lives as I have in spirit lived

를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이지만; 모든 이들이 모든 면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살리라고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 외에도 다른 무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내가 매인바 되어, 필사자 본성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물었다: “**주님**, 우리가 양보를 무시해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내 사자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모두에게 온유해라. 당한 그대로 갚는 것을 너희의 규칙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법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항상 자비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거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무 벅차다면, 너희는 덜 엄격한 제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도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잠시 자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졌으나, 곧 돌아왔고,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서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대가(代價)를 치를 준비가 충분히 돼있으며;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말씀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르라.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하며; 자선을 베풀 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따로 가서 하고,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선택된 내 사도로서 이제 천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이타적 봉사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관대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이기적이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네 속에 있는 바로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자, 자기들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지”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이해심으로 뭉친 한 가족으로서 살게 되기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서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 드리는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다. 천국 일에 기탄없이 협

mine. You are my personal representatives; but do not err in expecting all men to live as you do in every particular. Also must you remember that I have sheep not of this flock, and that I am beholden to them also, to the end that I must provide for them the pattern of doing the will of God while living the life of the mortal nature.”

140:6.9 (1577.3) Then asked Nathaniel: “Master, shall we give no place to justice? The law of Moses says,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What shall we say?” And Jesus answered: “You shall return good for evil. My messengers must not strive with men, but be gentle toward all. Measure for measure shall not be your rule. The rulers of men may have such laws, but not so in the kingdom; mercy always shall determine your judgments and love your conduct. And if these are hard sayings, you can even now turn back. If you find the requirements of apostleship too hard, you may return to the less rigorous pathway of discipleship.”

140:6.10 (1577.4) On hearing these startling words, the apostles drew apart by themselves for a while, but they soon returned, and Peter said: “Master, we would go on with you; not one of us would turn back. We are fully prepared to pay the extra price; we will drink the cup. We would be apostles, not merely disciples.”

140:6.11 (1577.5)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Be willing, then, to take up your responsibilities and follow me. Do your good deeds in secret; when you give alms, let not the left hand know what the right hand does. And when you pray, go apart by yourselves and use not vain repetitions and meaningless phrases. Always remember that the Father knows what you need even before you ask him. And be not given to fasting with a sad countenance to be seen by men. As my chosen apostles, now set apart for the service of the kingdom, lay not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but by your unselfish service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for where your treasures are, there will your hearts be also.

140:6.12 (1577.6) “The lamp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your eye is generous,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 is selfish, the whole body will be filled with darkness. If the very light which is in you is turned to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140:6.13 (1577.7) And then Thomas asked Jesus if they should “continue having everything in common.” Said the Master: “Yes, my brethren, I would that we should live together as one understanding family. You are intrusted with a great work, and I crave your undivided service. You know that it has been well sai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incerely worship God and at the same time wholeheartedly serve mammon. Having now enlisted unreservedly in the

력하려고 애쓴다면,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꺼이 일하는 손과 진실한 마음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이미 배웠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천국 일에 바치고자 준비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곤란함에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그곳의 입구를 발견하고 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기 위해 밤을 지새 우려함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 내일 일을 위해 속소로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잠이 달아났다. **베드로**가 과감히 **주님**께 간청했다: “나는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한 심령 때문이며, **주님**께 꾸짖음 당할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단둘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베드로**가 기분이 한결 고조된 것에 힘입어서, **아고보**도 **예수**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시간까지, 다른 사도들도 한 사람씩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잠자고 있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가진 개인 면담을 끝내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님**, 쌍둥이 형제는 정원 불 앞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도 당신과 대화하겠는지 물어보려 깨울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그들은 잘 하고 있으니--방해하지 마라.”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7. 임직식 다음 주간

몇 시간 잠을 잔 후에, 열두 사도가 **예수**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님**, 지금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이 위대한 이행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천국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도들 모두가 **도마**와 같은 생각임을 보고 말씀했다: “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하자; **안식일**까지 여기 머물자.”

work of the kingdom, be not anxious for your lives; much less be concerned with what you shall eat or what you shall drink; nor yet for your bodies, what clothing you shall wear. Already have you learned that willing hands and earnest hearts shall not go hungry. And now, when you prepare to devote all of your energi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be assured that the Father will not be unmindful of your needs.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when you have found entrance thereto, all things needful shall be added to you. Be not, therefore, unduly anxious for the morrow. Sufficient for the day is the trouble thereof.”

140:6.14 (1578.1) When Jesus saw they were disposed to stay up all night to ask questions, he said to them: “My brethren, you are earthen vessels; it is best for you to go to your rest so as to be ready for the morrow’s work.” But sleep had departed from their eyes. Peter ventured to request of his Master that “I have just a little private talk with you. Not that I would have secrets from my brethren, but I have a troubled spirit, and if, perchance, I should deserve a rebuke from my Master, I could the better endure it alone with you.” And Jesus said, “Come with me, Peter” — leading the way into the house. When Peter returned from the presence of his Master much cheered and greatly encouraged, James decided to go in to talk with Jesus. And so on through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the other apostles went in one by one to talk with the Master. When they had all held personal conferences with him save the twins, who had fallen asleep, Andrew went in to Jesus and said: “Master, the twins have fallen asleep in the garden by the fire; shall I arouse them to inquire if they would also talk with you?” And Jesus smilingly said to Andrew, “They do well — trouble them not.” And now the night was passing; the light of another day was dawning.

7. THE WEEK FOLLOWING THE ORDINATION

140:7.1 (1578.2) After a few hours’ sleep, when the twelve were assembled for a late breakfast with Jesus, he said: “Now must you begin your work of preaching the glad tidings and instructing believers. Make ready to go to Jerusalem.” After Jesus had spoken, Thomas mustered up courage to say: “I know, Master, that we should now be ready to enter upon the work, but I fear we are not yet able to accomplish this great undertaking. Would you consent for us to stay hereabouts for just a few days more before we begin the work of the kingdom?” And when Jesus saw that all of his apostles were possessed by this same fear, he said: “It shall be as you have requested; we will remain here over the Sabbath day.”

여러 주 동안,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작은 무리가, 호기심 있는 구경꾼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러 **벳새다**로 왔다. 이미 **예수**에 관한 소식은 시골까지 널리 퍼졌으며; 호기심에 찬 무리들이, **두로**, **시돈**, **다마스쿠스**, **가이사라**, 및 **예루살렘** 같은 먼 도시로부터 왔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천국에 관해 직접 가르쳤으나, **주님**은 이제 이 업무를 열두 사도에게 맡겼다. **안드레**는 사도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방문자 집단을 맡아보게 했고, 때로는 열두 명 모두 함께 참여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일했는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적(私的)인 상담을 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고기를 잡거나 기분전환 하거나 또는 가족을 방문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세베대**와 **살로메**를 방문했다. 그들은 추가적인 3일 동안의 교육을 위해 목요일에 돌아왔다.

이 연습기간에, **예수**께서는 세례 받은 후에 자신이 땅에서 이뤄야 할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다:

1. 사람에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2. 사람들이 아들_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곧 그들이 **지고자**의 자녀임을 신앙으로_깨닫는 것.

이 한 주간의 다양한 체험이 열두 사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며; 일부는 과도한 자기_확신에 빠지기까지 했다. **안식일**이 끝나는 밤에 마지막 회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께 나아와 말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이제 천국을 취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열심히 만큼 지혜롭고, 너희의 용기가 너희의 무지를 배우기 바란다.”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전부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의 중요성은 파악했다.

8.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사도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지침을 더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다른 동역자들의 관념을 분명히 밝혀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가 영적인 천국 관념의 특색을 다소 파악하면서도, 이 세상의 현세적 권세로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뿌리 깊은 옛 개념에, 새로운 영적 교훈을 직접 적용하려고 끈질기게 집착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목요일 오후에 천국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물가에서 떠났다. 이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장장 네 시간에 걸쳐 가르치

140:7.2 (1578.3) For weeks and weeks small groups of earnest truth seekers, together with curious spectators, had been coming to Bethsaida to see Jesus. Already word about him had spread over the countryside; inquiring groups had come from cities as far away as Tyre, Sidon, Damascus, Caesarea, and Jerusalem. Heretofore, Jesus had greeted these people and taught them concerning the kingdom, but the Master now turned this work over to the twelve. Andrew would select one of the apostles and assign him to a group of visitors, and sometimes all twelve of them were so engaged.

140:7.3 (1578.4) For two days they worked, teaching by day and holding private conferences late into the night. On the third day Jesus visited with Zebedee and Salome while he sent his apostles off to “go fishing, seek carefree change, or perchance visit your families.” On Thursday they returned for three more days of teaching.

140:7.4 (1578.5) During this week of rehearsing, Jesus many times repeated to his apostles the two great motives of his postbaptismal mission on earth:

140:7.5 (1578.6) 1. To reveal the Father to man.

140:7.6 (1578.7) 2. To lead men to become son-conscious — to faith-realize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140:7.7 (1579.1) One week of this varied experience did much for the twelve; some even became over self-confident. At the last conference, the night after the Sabbath, Peter and James came to Jesus, saying, “We are ready — let us now go forth to take the kingdom.” To which Jesus replied, “May your wisdom equal your zeal and your courage atone for your ignorance.”

140:7.8 (1579.2) Though the apostles failed to comprehend much of his teaching, they did not fail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charmingly beautiful life he lived with them.

8. THURSDAY AFTERNOON ON THE LAKE

140:8.1 (1579.3) Jesus well knew that his apostles were not fully assimilating his teachings. He decided to give some special instruction to Peter, James, and John, hoping they would be able to clarify the ideas of their associates. He saw that, while some features of the idea of a spiritual kingdom were being grasped by the twelve, they steadfastly persisted in attaching these new spiritual teachings directly onto their old and entrenched literal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as a restoration of David's throne and the re-establishment of Israel as a temporal power on earth. Accordingly, on Thursday afternoon Jesus went out from the shore in a boat with Peter, James, and John to talk over the affairs of the

는 회합이었고, 다음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형 **안드레**에게 이튿날 아침에 전했던 대로, 이 중대한 오후에 배웠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도록 재구성해서 요약한 것이다:

1. **아버지** 뜻을 행함. 하늘 **아버지**의 자상한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니었다. 그는 이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을 인용했다: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으려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체험담을 들려줬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의 훈계를, 현대 또는 어떤 다른 시대의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지침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에서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이상적 원리를 담고 있다.

예수께서는 세 명에게 사도신분과 제자신분에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밝혀줬다. 그때에도 그는, 열두 사도가 신중하고 선견지명을 발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였다. **하나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수, 밧 제작자, 밧 어부였던 자신의 생애에 대해, 그리고 열두 사도로 구성된 자신의 신중한 조직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이다. 세상이 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며, 생활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작용하는 신의 섭리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습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했고, 그들도 같은 방침을 추구한다면 자신이 기뻐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악에 저항하거나 불의 또는 모욕에 대해 싸우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잘못된 일에 대한 수동적 인내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과, 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당연한 처벌의 집행을 위해 민간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한 관습을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복수**, 즉 똑같이 되게 한다는 관념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원한을 품는 것도 슬퍼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맡겼다. 자신의 교훈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kingdom. This was a four hours' teaching conference, embracing scores of questions and answers, and may most profitably be put in this record by reorganizing the summary of this momentous afternoon as it was given by Simon Peter to his brother, Andrew, the following morning:

140:8.2 (1579.4) 1. *Doing the Father's will.* Jesus' teaching to trust in the overcare of the heavenly Father was not a blind and passive fatalism. He quoted with approval, on this afternoon, an old Hebrew saying: "He who will not work shall not eat." He pointed to his own experience as sufficient commentary on his teachings. His precepts about trusting the Father must not be adjudged by the social or economic conditions of modern times or any other age. His instruction embraces the ideal principles of living near God in all ages and on all worlds.

140:8.3 (1579.5) Jesus made clear to the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quirements of apostleship and discipleship. And even then he did not forbid the exercise of prudence and foresight by the twelve. What he preached against was not forethought but anxiety, worry. He taught the active and alert submission to God's will. In answer to many of their questions regarding frugality and thriftiness, he simply called attention to his life as carpenter, boatmaker, and fisherman, and to his careful organization of the twelve. He sought to make it clear that the world is not to be regarded as an enemy; that the circumstances of life constitute a divine dispensation working along with the children of God.

140:8.4 (1579.6) Jesus had great difficulty in getting them to understand his personal practice of nonresistance. He absolutely refused to defend himself, and it appeared to the apostles that he would be pleased if they would pursue the same policy. He taught them not to resist evil, not to combat injustice or injury, but he did not teach passive tolerance of wrongdoing. And he made it plain on this afternoon that he approved of the social punishment of evildoers and criminals, and that the civil government must sometimes employ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in the execution of justice.

140:8.5 (1579.7) He never ceased to warn his disciples against the evil practice of *retaliation*; he made no allowance for revenge, the idea of getting even. He deplored the holding of grudges. He disallowed the idea of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He discountenanced the whole concept of private and personal revenge, assigning these matters to civil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to the judgment of God, on the other. He made it clear to the three that his teachings applied to the *individual*, not the state. He summarized his instructions up to that time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곧 인간이 형제관계라는 도덕적 요구를 기억하라.

악의 무익함:잘못된 것은 복수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악한 수단으로 악과 싸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신앙을--곧 신성한 응보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가져라.

2. **정치적 입장.** 예수께서는, 그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 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사도들에게 주의를 줬으며;그들이 이 곤란한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지 말라고 금했다. 그는 언제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해치려는 이들의 정치적 함정을 항상 조심스럽게 피했다. 구원의 새로운 길을 확립하는 자신의 사명에서 옆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았으며;그 일 이외에 다른 어떤 일에도 자신의 주의를 돌리기를 거부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했으며;자신의 모든 공적{公的} 교훈에서는,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은 오로지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원리에만 관심을 둔다고, 세 사도에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정치 개혁가가 아니었다. 세상을 재조직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만약 이것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의 방법을 보여줬고, 자기 문제에 **예수**의 삶을 어떻게 최선으로 적용시킬 것인지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어떤 세대의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정치나 경제 이론 또는 사회나 산업 체계에 **예수**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말라.

3. **사회적 입장.** 유대의 랍비들은: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예수께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친절, 즉 온 세계를 이웃으로 확장시키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 정도로 진실한, 동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념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는 군중이 아니라 단지 개인에게 관심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인 연민의 정을 가르쳤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 지배받는 **아들**이었으며;연민의정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한다고, 추종자들에게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확고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됐다. 사회적 기생충 또는 전문적으로 자선금을 타내려는 자들에게

regarding these matters, as:

140:8.6 (1580.1) Love your enemies — remember the moral claims of human brotherhood.

140:8.7 (1580.2) The futility of evil: A wrong is not righted by vengeance. Do not make the mistake of fighting evil with its own weapons.

140:8.8 (1580.3) Have faith — confidence in the eventual triumph of divine justice and eternal goodness.

140:8.9 (1580.4) 2. *Political attitude.* He cautioned his apostles to be discreet in their remarks concerning the strained relations then existing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the Roman government; he forbade them to become in any way embroiled in these difficulties. He was always careful to avoid the political snares of his enemies, ever making reply, “Render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He refused to have his attention diverted from his mission of establishing a new way of salvation; he would not permit himself to be concerned about anything else. In his personal life he was always duly observant of all civil laws and regulations; in all his public teachings he ignored the civic, social, and economic realms. He told the three apostles that he was concerned only with the principles of man’s inner and personal spiritual life.

140:8.10 (1580.5) Jesus was not, therefore, a political reformer. He did not come to reorganize the world; even if he had done this, it would have been applicable only to that day and generation. Nevertheless, he did show man the best way of living, and no generation is exempt from the labor of discovering how best to adapt Jesus’ life to its own problems. But never make the mistake of identifying Jesus’ teachings with any political or economic theory, with any social or industrial system.

140:8.11 (1580.6) 3. *Social attitude.* The Jewish rabbis had long debated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Jesus came presenting the idea of active and spontaneous kindness, a love of one’s fellow men so genuine that it expanded the neighborhood to include the whole world, thereby making all men one’s neighbors. But with all this, Jesus was interested only in the individual, not the mass. Jesus was not a sociologist, but he did labor to break down all forms of selfish isolation. He taught pure sympathy, compassion. Michael of Nebadon is a mercy-dominated Son; compassion is his very nature.

140:8.12 (1580.7) The Master did not say that men should never entertain their friends at meat, but he did say that his followers should make feasts for the poor and the unfortunate. Jesus had a firm sense of justice, but it was always tempered with mercy. He did not teach his apostles that they were to be imposed upon by social parasites or

기만당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썸은,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사도들의 재산을 구제금으로 쓸 수 없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하라”고 말씀하곤 했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인내, 야량, 및 용서를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 했다.

예수의 생활철학의 최고 중심에는 --이 때와 그 후에도-- 가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교훈을 가족에 기초하는 동시에, 조상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경향을 고치려고 했다. 가정생활을 인간의 최고 임무로 높였지만, 가족 관계가 종교적 책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가족이 현재적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수께서는, 가족이 아버지 뜻에 방해가 되자, 주저 없이 가족을 포기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는-- 사람의 새롭고 더 큰 형제관계를 가르쳤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틴과 로마제국 전역에서 이혼 관습이 성행했다.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기를 거듭 거부했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 가운데 다수는, 이혼에 관한 강한 의견을 가졌고, 그것을 예수의 뜻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하고, 모든 신약 성경 기록자가, 이혼에 대해 더 엄격하고 진보된 이 개념을 고수했다.

4. 경제적 입장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딪치는 대로 세상에서 일하고, 살고, 거래했다. 불평등한 재산 분배의 부당함에 자주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그는 경제 제도의 개혁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부와 재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재산 분배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했을 뿐이라고, 그 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사회 정의와 산업의 공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고, 열두 사도에게만 그렇게 가르쳤다. 의사 누가는,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신봉하는 자였고,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조화되도록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이 애썼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친히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탐욕을 물리치도록 청중에게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그의 풍족한 물질 소유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온 세상을

professional alms-seekers. The nearest he came to making sociological pronouncements was to say,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140:8.13 (1580.8) He made it clear that indiscriminate kindness may be blamed for many social evils. The following day Jesus definitely instructed Judas that no apostolic funds were to be given out as alms except upon his request or upon the joint petition of two of the apostles. In all these matters it was the practice of Jesus always to say, “Be as wise as serpents but as harmless as doves.” It seemed to be his purpose in all social situations to teach patience, tolerance, and forgiveness.

140:8.14 (1581.1) The family occupied the very center of Jesus' philosophy of life — here and hereafter. He based his teachings about God on the family, while he sought to correct the Jewish tendency to overhonor ancestors. He exalted family life as the highest human duty but made it plain that family relationships must not interfere with religious obligations.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amily is a temporal institution; that it does not survive death. Jesus did not hesitate to give up his family when the family ran counter to the Father's will. He taught the new and larger brotherhood of man — the sons of God. In Jesus' time divorce practices were lax in Palestine an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He repeatedly refused to lay down laws regarding marriage and divorce, but many of Jesus' early followers had strong opinions on divorce and did not hesitate to attribute them to him. All of the New Testament writers held to these more stringent and advanced ideas about divorce except John Mark.

140:8.15 (1581.2) 4. *Economic attitude.* Jesus worked, lived, and traded in the world as he found it. He was not an economic reformer, although he did frequently call attention to the injustice of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But he did not offer any suggestions by way of remedy. He made it plain to the three that, while his apostles were not to hold property, he was not preaching against wealth and property, merely its unequal and unfair distribution. He recognized the need for social justice and industrial fairness, but he offered no rules for their attainment.

140:8.16 (1581.3) He never taught his followers to avoid earthly possessions, only his twelve apostles. Luke, the physician, was a strong believer in social equality, and he did much to interpret Jesus' sayings in harmony with his personal beliefs. Jesus never personally directed his followers to adopt a communal mode of life; he made no pronouncement of any sort regarding such matters.

140:8.17 (1581.4) Jesus frequently warned his listeners against covetousness, declaring that “a man's happiness consists not in the abundance of his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했다.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후반기 교훈에서, 자신의 대중 사역 과정 가운데 제시했던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유란시아**의 잘못된 인생 관점들을 고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경제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각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체의 해결책을 발전시켜야만 함을 잘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중에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선남선녀 대부분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배의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내적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는 아주 초연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동정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몰두하는 자들 대부분에게 재물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목요일 오후에 동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처음으로 말씀했다.

5. 개인 종교.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독특한 교훈은, 그 교훈의 직접 배경으로 그 생애가 생생하게 그려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사랑하는 인격을 드러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열두 사도에게 준 훈계나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생애다.

예수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나 **그리스** 도덕가들의 교훈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생들이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을 인정했지만, 부가적인 어떤 것, 즉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 느낌으로 가득 차고 영적 충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그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 일을 많이 체험한, 진정한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교훈은, **그리스도**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많이 잘못 전해져 왔으며; 너희 역시 **주님**의 운유함과 겸손함에 대해 왜곡된 관념에 매달려 왔다. 그가 일생에 목표했던 것은, **뛰어난 자존감**{自尊感}이었던 것 같다. 스스로 겸손해야 진정으로 높임 받게 된다고 충고했을 뿐이며; 그가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그는 진실함에--곧 순수한 마음--큰 가치를 뒀다. 성품에 대해 그가 평가할 때, 충성이 으뜸가는 덕목이었고, 한편 용기는 그의 교훈의 핵심

material possessions." He constantly reiterated, "What shall it profit a man if he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He made no direct attack on the possession of property, but he did insist that it is eternally essential that spiritual values come first. In his later teachings he sought to correct many erroneous Urantia views of life by narrating numerous parables which he presented in the course of his public ministry. Jesus never intended to formulate economic theories; he well knew that each age must evolve its own remedies for existing troubles. And if Jesus were on earth today, living his life in the flesh, he would be a great disappointment to the majority of good men and women for the simple reason that he would not take sides in present-day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disputes. He would remain grandly aloof while teaching you how to perfect your inner spiritual life so as to render you manyfold more competent to attack the solution of your purely human problems.

140:8.18 (1581.5) Jesus would make all men Godlike and then stand by sympathetically while these sons of God solve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t was not wealth that he denounced, but what wealth does to the majority of its devotees. On this Thursday afternoon Jesus first told his associates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140:8.19 (1581.6) 5. Personal religion. You, as did his apostles, should the better understand Jesus' teachings by his life. He lived a perfected life on Urantia, and his unique teaching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that life is visualized in its immediate background. It is his life, and not his lessons to the twelve or his sermons to the multitudes, that will assist most in revealing the Father's divine character and loving personality.

140:8.20 (1582.1) Jesus did not attack the teachings of the Hebrew prophets or the Greek moralists. The Master recognized the many good things which these great teachers stood for, but he had come down to earth to teach something additional, "the voluntary conformity of man's will to God's will." Jesus did not want simply to produce a religious man, a mortal wholly occupied with religious feelings and actuated only by spiritual impulses. Could you have had but one look at him, you would have known that Jesus was a real man of great experience in the things of this world. The teachings of Jesus in this respect have been grossly perverted and much misrepresented all down through th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you have also held perverted ideas about the Master's meekness and humility. What he aimed at in his life appears to have been a superb self-respect. He only advised man to humble himself that he might become truly exalted; what he really aimed at was true humility toward God. He placed

이었다. “두려워 말라”가 그의 표어였고, 끈기 있는 인내는 강건한 성품의 이상{理想}이었다. **예수**의 교훈은, 용맹, 용기, 및 영웅적 자질의 종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개인 대표자로 열두 명의 평범한 사람을 택한 이유였고, 그들 대부분은 거칠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드물게 언급했다. 진정한 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가르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신중하게 피했으며; 악을 선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덕을 개혁하는 자도 아니었다. 인류의 관능적 충동을 종교적 비난이나 율법의 제재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드물었던 그의 비난은 주로, 자존심, 잔인함, 억압, 및 위선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조차 격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다수의 심정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예속돼 있음을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먼저 나무를 좋게 만들기”를 많이 강조했다. 그는 세 명에게, 자신은 단지 몇 가지 특별한 덕성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진 인간성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가진 성품을 획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진실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이로부터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교리를 지어냈다.

야고보는, 이 세상 자녀들이 마치 하늘 나라에서 이미 시민이 된 것처럼 살기를 **예수**께서 원한다는, 감격스런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제자와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 맞추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분리된 한 개인으로서, 각각의 혼이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도록 허용하려고 했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님**이 말씀했다: “어린아이처럼 새롭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적이어야 한다고, 즉 자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했다.

great value upon sincerity — a pure heart. Fidelity was a cardinal virtue in his estimate of character, while *courage* was the very heart of his teachings. “Fear not” was his watchword, and patient endurance his ideal of strength of character. The teachings of Jesus constitute a religion of valor, courage, and heroism. And this is just why he chose as his personal representatives twelve commonplace men, the majority of whom were rugged, virile, and manly fishermen.

140:8.21 (1582.2) Jesus had little to say about the social vices of his day; seldom did he make reference to moral delinquency. He was a positive teacher of true virtue. He studiously avoided the negative method of imparting instruction; he refused to advertise evil. He was not even a moral reformer. He well knew, and so taught his apostles, that the sensual urges of mankind are not suppressed by either religious rebuke or legal prohibitions. His few denunciations were largely directed against pride, cruelty, oppression, and hypocrisy.

140:8.22 (1582.3) Jesus did not vehemently denounce even the Pharisees, as did John. He knew many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honest of heart; he understood their enslaving bondage to religious traditions. Jesus laid great emphasis on “first making the tree good.” He impressed the three that he valued the whole life, not just a certain few special virtues.

140:8.23 (1582.4) The one thing which John gained from this day's teaching was that the heart of Jesus' religion consisted in the acquirement of a compassionate character coupled with a personality motivated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40:8.24 (1582.5) Peter grasped the idea that the gospel they were about to proclaim was really a fresh beginning for the whole human race. He conveyed this impression subsequently to Paul, who formulated therefrom his doctrine of Christ as “the second Adam.”

140:8.25 (1582.6) James grasped the thrilling truth that Jesus wanted his children on earth to live as though they were already citizens of the completed heavenly kingdom.

140:8.26 (1582.7) Jesus knew men were different, and he so taught his apostles. He constantly exhorted them to refrain from trying to mold the disciples and believers according to some set pattern. He sought to allow each soul to develop in its own way, a perfecting and separate individual before God. In answer to one of Peter's many questions, the Master said: “I want to set men free so that they can start out afresh as little children upon the new and better life.” Jesus always insisted that true goodness must be unconscious, in bestowing charity not allowing the left hand to know what the

세 사도는 이날 오후에, **주님**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_반성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예수** 시대를 전후해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으로 자기를_반성하라고 면밀히 규정한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생활철학에는, 종교적 자기반성이 아예 없었다. 목수의 아들은,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하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품의 성장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쭐하는 자만심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자기_분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즉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 천국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에 참여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代價)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소유하려는 아주 비싼 진주와 같다.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그의 종교는 (그의 시절 동안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범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생애와 교훈은,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의 영적 인도와 도덕적 지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고, 이상적인 유산으로서 우주에 전해졌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로부터 초연해 있을지라도, 그 가르침 자체는, 그것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대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두 사도에게는, 종교가 그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예수**께서는 신도들의 진정한 문화 추구에 방해될만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직 전통에 매여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학파들만 비방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박식했으며, 참을성이 많았다. 남을_의식하는 경건은, 정의로써 사는 그의 철학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 당시 또는 후일의 어느 시대든지, **주님**은 비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삶이 시작되도록 자극하기 원했으며; 인간 종족의 잠재적이고 영원한 영적 필요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뒀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선함을 보여줬다. 그는 사랑--곧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 신성한 이상이요 영원한 실체라고 찬양했다.

주님은 새로운 영, 즉 새로운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려고--곧 진리를 알고, 동정심을 체험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려고--왔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다.

right hand does.

140:8.27 (1583.1) The three apostles were shocked this afternoon when they realized that their Master's religion made no provision for spiritual self-examination. All religions before and after the times of Jesus, even Christianity, carefully provide for conscientious self-examination. But not so with the religion of Jesus of Nazareth. Jesus' philosophy of life is without religious introspection. The carpenter's son never taught character *building*; he taught character *growth*, declaring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But Jesus said nothing which would proscribe self-analysis as a prevention of conceited egotism.

140:8.28 (1583.2) The right to enter the kingdom is conditioned by faith, personal belief. The cost of remaining in the progressive ascent of the kingdom is the pearl of great price, in order to possess which a man sells all that he has.

140:8.29 (1583.3) The teaching of Jesus is a religion for everybody, not alone for weaklings and slaves. His religion never became crystallized (during his day) into creeds and theological laws; he left not a line of writing behind him. His life and teachings were bequeathed the universe as an inspirational and idealistic inheritance suitable for the spiritual guidance and moral instruction of all ages on all worlds. And even today, Jesus' teaching stands apart from all religions, as such, albeit it is the living hope of every one of them.

140:8.30 (1583.4) Jesus did not teach his apostles that religion is man's only earthly pursuit; that was the Jewish idea of serving God. But he did insist that religion was the exclusive business of the twelve. Jesus taught nothing to deter his believers from the pursuit of genuine culture; he only detracted from the tradition-bound religious schools of Jerusalem. He was liberal, big-hearted, learned, and tolerant. Self-conscious piety had no place in his philosophy of righteous living.

140:8.31 (1583.5) The Master offered no solutions for the nonreligious problems of his own age nor for any subsequent age. Jesus wished to develop spiritual insight into eternal realities and to stimulate initiative in the originality of living; he concerned himself exclusively with the underlying and permanent spiritual needs of the human race. He revealed a goodness equal to God. He exalted love — truth, beauty, and goodness — as the divine ideal and the eternal reality.

140:8.32 (1583.6) The Master came to create in man a new spirit, a new will — to impart a new capacity for knowing the truth, experiencing compassion, and choosing goodness — the will to be in harmony with God's will, coupled with the eternal urge to becom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9. 봉헌식이 있던 날

그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임직식을 그들에게 거행했던 산지(山地)로 돌아가면서, 사도들에게 몰두했으며; 거기서, 길고도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격려의 말씀을 친히 주신 후에, 열두 사도의 봉헌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산비탈에서 자기 주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세상에 그들만 남겨두고 떠날 날을 대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들을 맡겼다. 이때에는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 없었고, 단지 환담과 교류만 있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했던 임직식 설교의 많은 특색을 회고했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한 사람씩 앞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그의 대표자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임명했다. **주님**의 봉헌식 훈시는 이랬다: “세상에 나아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난당하는 자를 보살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돈이나 여벌 옷을 지니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품삷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無害)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너희의 적들이 너희를 공회(公會) 앞으로 끌어가겠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관리와 총독들 앞에 불러갈 것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의 참된 증언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에게 데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그때 너희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사형당할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영이 너희보다 먼저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라.”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세베대**의 집에 있는 본거지로 돌아갔다.

10. 봉헌식 이후의 저녁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집안에서 열두 사도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왜**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면서 장시간

9. THE DAY OF CONSECRATION

140:9.1 (1583.7) The next Sabbath day Jesus devoted to his apostles, journeying back to the highland where he had ordained them; and there, after a long and beautifully touching personal message of encouragement, he engaged in the solemn act of the consecration of the twelve. This Sabbath afternoon Jesus assembled the apostles around him on the hillside an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his heavenly Father in preparation for the day when he would be compelled to leave them alone in the world. There was no new teaching on this occasion, just visiting and communion.

140:9.2 (1584.1) Jesus reviewed many features of the ordination sermon, delivered on this same spot, and then, calling them before him one by one, he commissioned them to go forth in the world as his representatives. The Master's consecration charge wa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Liberate spiritual captives, comfort the oppressed, and minister to the afflicted.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140:9.3 (1584.2) Jesus advised them to take neither money nor extra clothing, saying,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hire." And finally he said: "Behold I send you forth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be you therefore as wise as serpents and as harmless as doves. But take heed, for your enemies will bring you up before their councils, while in their synagogues they will castigate you. Before governors and rulers you will be brought because you believe this gospel, and your very testimony shall be a witness for me to them. And when they lead you to judgment, be not anxious about what you shall say, for the spirit of my Father indwells you and will at such a time speak through you. Some of you will be put to death, and before you establish the kingdom on earth, you will be hated by many peoples because of this gospel; but fear not; I will be with you, and my spirit shall go before you into all the world. And my Father's presence will abide with you while you go first to the Jews, then to the gentiles."

140:9.4 (1584.3) And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they journeyed back to their home in Zebedee's house.

10. THE EVENING AFTER THE CONSECRATION

140:10.1 (1584.4) That evening while teaching in the house, for it had begun to rain, Jesus talked at great length, trying to show the twelve what they must *be*, not what they must *do*. They knew only a

이야기했다. 그들은 의로움을--곧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특정한 *행함*을 요구하는 종교만 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게 *돼야* 한다”고 거듭 말씀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했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갖고 온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곧 단순하고 진지한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요한**은 옛 생활방식을 참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너희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세례를 선포하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개를 전파하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참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자녀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세상 필사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의로움을 *행함*보다 앞서야 함을,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열두 사도를 가르치는 이 일에 또 다른 큰 장애물은, 그들이 매우 이상적이고 영적인 원칙, 즉 종교적 진리의 원칙을, 단단하게 굳어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바꾸려는 경향이였다. **예수**께서는 혼의 태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런 교훈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고집했다.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그들은 그가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확실히 잊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동화됐다. 사도들은, 그가 말로 지시한 것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습득했다.

사도들은, 광범한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영감을 주는 생애를 살아가려고 **주님**이 전심으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때때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사도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창조한 방대한 모든 다른 세상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남녀만을 위하여 필사자로서 사는 본모기를 친히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계의 모든 필사 존재를 위한, *영적이고 영감 주는 고귀한 이상(理想)*을 창조하려고, **유란시아**에서 지상생애를 살았다.

바로 이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며 우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값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요구했을 때, 쉽게 속거나, 단순

religion that imposed the *doing* of certain things as the means of attaining righteousness — salvation. But Jesus would reiterate, “In the kingdom you must be righteous in order to do the work.” Many times did he repeat, “Be you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All the while was the Master explaining to his bewildered apostles that the salvation which he had come to bring to the world was to be had only by *believing*, by simple and sincere faith. Said Jesus: “John preached a baptism of repentance, sorrow for the old way of living. You are to proclaim the baptism of fellowship with God. Preach repentance to those who stand in need of such teaching, but to those already seeking sincere entrance to the kingdom, open the doors wide and bid them enter into the joyous fellowship of the sons of God.” But it was a difficult task to persuade these Galilean fishermen that, in the kingdom, *being* righteous, by faith, must precede *doing* righteousness in the daily life of the mortals of earth.

140:10.2 (1584.5) Another great handicap in this work of teaching the twelve was their tendency to take highly idealistic and spiritual principles of religious truth and remake them into concrete rules of personal conduct. Jesus would present to them the beautiful spirit of the soul's attitude, but they insisted on translating such teachings into rules of personal behavior. Many times, when they did make sure to remember what the Master said, they were almost certain to forget what he did *not* say. But they slowly assimilated his teaching because Jesus was all that he taught. What they could not gain from his verbal instruction, they gradually acquired by living with him.

140:10.3 (1585.1) It was not apparent to the apostles that their Master was engaged in living a life of spiritual inspiration for every person of every age on every world of a far-flung universe. Notwithstanding what Jesus told them from time to time, the apostles did not grasp the idea that he was doing a work *on* this world but *for* all other worlds in his vast creation. Jesus lived his earth life on Urantia, not to set a personal example of mortal living for the men and women of this world, but rather to create a *high spiritual and inspirational ideal* for all mortal beings on all worlds.

140:10.4 (1585.2) This same evening Thomas asked Jesus: “Master, you say that we must become as little children before we can gain entrance to the Father's kingdom, and yet you have warned us not to be deceived by false prophets nor to become guilty of casting our pearls before swine. Now, I am honestly puzzled. I cannot understand your teaching.” Jesus replied to Thomas: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Ever you insist on making literal all that I teach. When I asked you to become as little children as the price of entering the kingdom, I referred not to ease of deception, mere

히 믿고자 하거나, 호감 주는 낯선 이를 성급히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너희가 그 설명에서 붙잡기 바랐던 것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였다. 너희는 자녀이고, 너희가 들어가고자 구하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나라다. 정상적인 모든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는 선천적 애정이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얻기 위해 흥정하려는 모든 계획을 영원히 배제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전파할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신앙으로 실현함으로써 자라나는 구원과 관련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질은, 그의 철학에 담긴 도덕성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사적 관계--바로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종족이나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인에게 중점을 뒀다.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마태와 이야기하다가, 어떤 행동이든지 그 도덕성은 개인의 동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예수의 도덕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규정한 황금률은 능동적인 사회적 교제를 요구했는데, 부정적인 옛 규율은 고립 속에서 지켜질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도덕성에 붙어있는 모든 규정과 예식을 벗겨내고, 영적 사고와 진실로 의로운 삶이라는 웅대한 수준으로 도덕성을 끌어올렸다.

이런 예수의 새 종교에 실질적인 함축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엇이 발견되든지, 그것은 혼이 내적 체험으로 이루는 자연스런 결실과정이며, 그 혼은 진정한 개인적 종교 체험으로 인해 날마다 자발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영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마태와 이야기를 끝내자 열심당 시몬이,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가요?”라고 질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시몬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너희가 선포할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교리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새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추종자들에게 심어주기 원했으므로,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도덕성은 자신이 실천하는 종교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성을 가르쳤다.

요한이 예수께, “주님, 하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늘 나라는 이 세 가지 본질로 이뤄졌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로 인정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를 믿으며; 셋째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곧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최고의 소망이 효력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사자든지 구원의 이 세 가지 필수사항 전부를

willingness to believe, nor to quickness to trust pleasing strangers. What I did desire that you should gather from the illustration was the child-father relationship. You are the child, and it is your Father's kingdom you seek to enter. There is present that natural affection between every normal child and its father which insures an understanding and loving relationship, and which forever precludes all disposition to bargain for the Father's love and mercy. And the gospel you are going forth to preach has to do with a salvation growing out of the faith-realization of this very and eternal child-father relationship.”

140:10.5 (1185.3) The one characteristic of Jesus' teaching was that the *morality* of his philosophy originated in the personal relation of the individual to God — this very child-father relationship. Jesus placed emphasis on the *individual*, not on the race or nation. While eating supper, Jesus had the talk with Matthew in which he explained that the morality of any act is determined by the individual's motive. Jesus' morality was always positive. The golden rule as restated by Jesus demands active social contact; the older negative rule could be obeyed in isolation. Jesus stripped morality of all rules and ceremonies and elevated it to majestic levels of spiritual thinking and truly righteous living.

140:10.6 (1585.4) This new religion of Jesus was not without its practical implications, but whatever of practical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value there is to be found in his teaching is the natural outworking of this inner experience of the soul as it manifest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spontaneous daily ministry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140:10.7 (1585.5) After Jesus and Matthew had finished talking, Simon Zelotes asked, “But, Master, are *all* men the sons of God?” And Jesus answered: “Yes, Simon, all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at is the good news you are going to proclaim.” But the apostles could not grasp such a doctrine; it was a new, strange, and startling announcement. And it was because of his desire to impress this truth upon them that Jesus taught his followers to treat all men as their brothers.

140:10.8 (1585.6) In response to a question asked by Andrew, the Master made it clear that the morality of his teaching was inseparable from the religion of his living. He taught morality, not from the *nature* of man, but from the *relation* of man to God.

140:10.9 (1585.7) John asked Jesus, “Master, what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Jesus answered: “The kingdom of heaven consists in these three essentials: first, recognition of the fact of the sovereignty of God; second, belief in the truth of sonship with God; and third, faith i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reme human desire to do the will of God — to be like God. And this is the

신앙으로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 주간이 끝나고, 그들은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good news of the gospel: that by faith every mortal may have all these essentials of salvation.”

140:10.10 (1586:1) And now the week of waiting was over, and they prepared to depart on the morrow for Jerusalem.

제 141편. 공적 업무의 시작

⇨ 140

유랜시아 책

14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41편
공적 업무의 시작

섹션

소개

1. 갈릴리를 떠남
2.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3. 아마수스에 체류함
4. 아버지께 관한 가르침
5. 영적 통일
6. 아마수스에서 지낸 마지막 주간
7.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8. 예리고에서 활동함
9.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소개

서기 27년 1월 19일 그 주의 첫날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새다**의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열두 사도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고, 단지 4월에 있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요단** 계곡을 거쳐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사도들의 가족 및 다른 제자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 일의 성공을 빌기 위해서 왔으므로, 그들은 정오가 될 때까지도 **세베대**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

출발하기 직전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안드레**가 찾아 나섰다. 그는 얼마 후에 해변 아래 쪽에서 배에 앉아 있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는 울고 있었다. 열두 사도는, **주님**이 근심에 차있는 모습을 종종 봤고,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음을 본 적은 있었지만,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그렇게 상심해 있음을 보고 놀라서,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선

PAPER 141

BEGINNING THE PUBLIC WORK

SECTIONS

Introduction

1. Leaving Galilee
2. God's Law and the Father's Will
3. The Sojourn at Amathus
4. Teaching about the Father
5. Spiritual Unity
6. Last Week at Amathus
7. At Bethany Beyond Jordan
8. Working in Jericho
9. Departing for Jerusalem

INTRODUCTION

141:0.1 (1587.1)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anuary 19, A.D. 27,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made ready to depart from their headquarters in Bethsaida. The twelve knew nothing of their Master's plans except that they were going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Passover feast in April, and that it was the intention to journey by way of the Jordan valley. They did not get away from Zebedee's house until near noon because the families of the apostles and others of the disciples had come to say good-bye and wish them well in the new work they were about to begin.

141:0.2 (1587.2) Just before leaving, the apostles missed the Master, and Andrew went out to find him. After a brief search he found Jesus sitting in a boat down the beach, and he was weeping. The twelve had often seen their Master when he seemed to grieve, and they had beheld his brief seasons of serious preoccupation of mind, but none of them had ever seen him weep. Andrew was somewhat startled to see the Master thus affected on the eve of their departure for

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우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로 인해 상심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합류하기 위해 **안드레**와 함께 돌아가면서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비탄에 잠기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아버지 **요셉**의 식구 가운데서 아무도, 잊지 않고 성공을 기원하러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룻**은 오빠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다. 그의 가족 중에서 다른 식구들은, 자존심, 실망, 오해, 그리고 감정이 상한 결과로 하찮은 분노에 빠져서 그를 멀리했다.

1. 갈릴리를 떠남

가버나움은 **디베라**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체는 물론 그 너머 지역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헤롯**이 머지않아 자신의 일에 주목하게 될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100명 이상의 신도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도 집단과 동행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들은 뒤에 남아있기로 동의했지만, 그들 가운데 여럿이 며칠 뒤에 **주님**을 뒤쫓아 갔다.

첫날에, **예수**와 사도들은 겨우 **다리키아**까지 여행했고,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다. 그들은 다음 날 **펠라** 근처 **요단**의 어느 지점까지 여행했는데, 1년 전에 **요한**이 전도하고 **예수**께서 세례 받은 장소였다. 그들은 여기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2주 이상 머물렀다. 첫 주 주말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가 머물던 곳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유대지방**에서 왔다.

예수께서는 대중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무리를 오전 오후 모임으로 나누고 설교자를 배정했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이야기했다. 새로운 것은 가르치지 않고, 단지 그 전의 가르침을 복습했으며, 많은 질문에 답변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열두 사도에게, 자신이 그 장소 가까이 있는 언덕에서 지냈던 40일에 관해 언급했다.

베레아와 **유대지방**에서 온 그들 가운데 다수는, **요한**에게 세례 받았고 **예수**의 교훈에 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사도들은, **요한**의 전도에 어떤 면에서도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그 후로 이때까지도 새로 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예수**가 **요한**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Jerusalem, and he ventured to approach Jesus and ask: “On this great day, Master, when we are to depart for Jerusalem to proclaim the Father’s kingdom, why is it that you weep? Which of us has offended you?” And Jesus, going back with Andrew to join the twelve, answered him: “No one of you has grieved me. I am saddened only because none of my father Joseph’s family have remembered to come over to bid us Godspeed.” At this time Ruth was on a visit to her brother Joseph at Nazareth. Other members of his family were kept away by pride, disappointment, misunderstanding, and petty resentment indulged as a result of hurt feelings.

1. LEAVING GALILEE

141:1.1 (1587.3) Capernaum was not far from Tiberias, and the fame of Jesus had begun to spread well over all of Galilee and even to parts beyond. Jesus knew that Herod would soon begin to take notice of his work; so he thought best to journey south and into Judea with his apostles. A company of over one hundred believers desired to go with them, but Jesus spoke to them and besought them not to accompany the apostolic group on their way down the Jordan. Though they consented to remain behind, many of them followed after the Master within a few days.

141:1.2 (1587.4) The first day Jesus and the apostles only journeyed as far as Tarichea, where they rested for the night. The next day they traveled to a point on the Jordan near Pella where John had preached about one year before, and where Jesus had received baptism. Here they tarried for more than two weeks, teaching and preaching. By the end of the first week several hundred people had assembled in a camp near where Jesus and the twelve dwelt, and they had come from Galilee, Phoenicia, Syria, the Decapolis, Perea, and Judea.

141:1.3 (1588.1) Jesus did no public preaching. Andrew divided the multitude and assigned the preachers for the forenoon and afternoon assemblies; after the evening meal Jesus talked with the twelve. He taught them nothing new but reviewed his former teaching and answered their many questions. On one of these evenings he told the twelve something about the forty days which he spent in the hills near this place.

141:1.4 (1588.2) Many of those who came from Perea and Judea had been baptized by John and were interested in finding out more about Jesus’ teachings. The apostles made much progress in teaching the disciples of John inasmuch as they did not in any way detract from John’s preaching, and since they did not at this time even baptize their new disciples. But it was always a stumbling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했어야 한다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안드레는, **세레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를, 매일 밤 동료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시했다. **예수**의 공적{公的} 사역의 이 첫 해 동안, 추종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르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였다. 서기 27년인 이 해 내내, **베레아**와 **유대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면서 조용히 지나갔다.

2.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펠라를 떠나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관해 좀 더 가르쳤다. **주님**이 말씀했다: “너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배웠으며, 이제 나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이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다. 모든 나라에는 왕좌에 앉아서 그 영역의 법을 제정하는 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유대** 백성을 영광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적적 권능을 행사하여, 모든 세상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으로 하늘 나라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애들이, 너희는 보아도 신앙의 눈이 없고, 들어도 영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정 그분의 충실한 신하이지만, 그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다. 이 진리는 내 생애에서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또한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 있으며; 그는 수많은 우주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신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필사적 사람들의 혼 속에 살도록 보내신 영{靈}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나라의 신하가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돼있지만; 내가 선포하러 온 천국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자녀임을 신앙으로 발견할 때, 너희는 그때부터 전능한 왕의 법에 굴복하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신성하신 **아버지**의 특혜를 입은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아버지**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에는, 너희가 천국에 있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진실로 너희의 뜻이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천국에 있게 되는데, 그리함으로 천국이 너희 안

stone to John's followers that Jesus, if he were all that John had announced, did nothing to get him out of prison. John's disciples never could understand why Jesus did not prevent the cruel death of their beloved leader.

141:1.5 (1588.3) From night to night Andrew carefully instructed his fellow apostles in the delicate and difficult task of getting along smoothly with the followers of John the Baptist. During this first year of Jesus' public ministry more than three fourths of his followers had previously followed John and had received his baptism. This entire year of A.D. 27 was spent in quietly taking over John's work in Perea and Judea.

2. GOD'S LAW AND THE FATHER'S WILL

141:2.1 (1588.4) The night before they left Pella, Jesus gave the apostles some further instruction with regard to the new kingdom. Said the Master: "You have been taught to look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now I come announcing that this long-looked-for kingdom is near at hand, even that it is already here and in our midst. In every kingdom there must be a king seated upon his throne and decreeing the laws of the realm. And so have you developed a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as a glorified rule of the Jewish people over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th Messiah sitting on David's throne and from this place of miraculous power promulgating the laws of all the world. But, my children, you see not with the eye of faith, and you hear no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I declare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realization and acknowledgment of God's rule within the hearts of men. True, there is a King in this kingdom, and that King is my Father and your Father. We are indeed his loyal subjects, but far transcending that fact is the transforming truth that we are his sons. In my life this truth is to become manifest to all. Our Father also sits upon a throne, but not one made with hands. The throne of the Infinite is the eternal dwelling place of the Father in the heaven of heavens; he fills all things and proclaims his laws to universes upon universes. And the Father also rules within the hearts of his children on earth by the spirit which he has sent to live within the souls of mortal men.

141:2.2 (1588.5) "When you are the subjects of this kingdom, you indeed are made to hear the law of the Universe Ruler; but when, becaus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you faith-discover yourselves as sons, you henceforth look not upon yourselves as law-subject creatures of an all-powerful king but as privileged sons of a loving and divine Fath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en the Father's will is your law, you are hardly in the kingdom. But when the Father's will becomes truly your will, then are you

에서 확고한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 너희는 고상한 노예 같은 신하이지만; 너희가 신성한 아들신분의 새 복음을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너희는 천국의 해방된 아들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승격된다.”

사도 중에서 일부가 이런 가르침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이 굉장한 발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납득한 사람은 **야고보 세베대** 뿐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나중에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사역을 기쁘게 만들었다.

3. 아마수스에 체류함

주님과 사도들은 **아마수스** 근처에서 거의 3주 동안 머물렀다. 사도들은 대중에게 매일 두 번씩 설교하기를 계속했고, **예수**께서는 **안식일** 오후마다 설교했다. 수요일을 노는 시간으로 지키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래서 **안드레**는, 6일 동안 사도들이 하루에 두 명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 예배 동안에는 모두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부분의 공중 설교를 맡았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인을 상대로 많이 일했고, 질문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학급을 운영했으며; 쌍둥이 형제는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 **마태**, 및 **유다**는 3인 관리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세 사람 각자는 종교적 업무도 상당히 수행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과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사도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하지 않는 집단들이 적어도 임시적이거나 다소간 화해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는 이 회담 가운데 어디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또한 이런 어려움의 적합한 조정에 관한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조언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이런 질문을 **예수**에게 가져오면, 그는 늘 이렇게 말씀했다: “주인이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 결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주님은 뛰어난 지혜를 드러냈고, 사도와 제자들을 다루는 데서 완벽한 공정성을 나타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스승이었으며; 매력

in very truth in the kingdom because the kingdom has thereby become an established experience in you. When God's will is your law, you are noble slave subjects; but when you believe in this new gospel of divine sonship, my Father's will becomes your will, and you are elevated to the high position of the free children of God, liberated sons of the kingdom.”

141:2.3 (1589.1) Some of the apostles grasped something of this teaching, but none of them comprehended the full significance of this tremendous announcement, unless it was James Zebedee. But these words sank into their hearts and came forth to gladden their ministry during later years of service.

3. THE SOJOURN AT AMATHUS

141:3.1 (1589.2) The Master and his apostles remained near Amathus for almost three weeks. The apostles continued to preach twice daily to the multitude, and Jesus preached each Sabbath afternoon. It became impossible to continue the Wednesday playtime; so Andrew arranged that two apostles should rest each day of the six days in the week, while all were on duty during the Sabbath services.

141:3.2 (1589.3) Peter, James, and John did most of the public preaching. Philip, Nathaniel, Thomas, and Simon did much of the personal work and conducted classes for special groups of inquirers; the twins continued their general police supervision, while Andrew, Matthew, and Judas developed into a general managerial committee of three, although each of these three also did considerable religious work.

141:3.3 (1589.4) Andrew was much occupied with the task of adjusting the constantly recurring misunderstanding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disciples of John and the newer disciples of Jesus. Serious situations would arise every few days, but Andrew, with the assistance of his apostolic associates, managed to induce the contending parties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at least temporarily. Jesus refused to participate in any of these conferences; neither would he give any advice about the proper adjustment of these difficulties. He never once offered a suggestion as to how the apostles should solve these perplexing problems. When Andrew came to Jesus with these questions, he would always say: “It is not wise for the host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troubles of his guests; a wise parent never takes sides in the petty quarrels of his own children.”

141:3.4 (1589.5) The Master displayed great wisdom and manifested perfect fairness in all of his dealings with his apostles and with all of his

과 힘이 합쳐진 인간성으로 인해, 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고된 생활과 집 없이 방랑하는 삶 속에, 형언하기 어려운 당당한 감화력이 있었다.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태도, 명석한 논리, 추론하는 힘, 현명한 통찰력, 정신의 민첩함, 견줄 데 없는 평정심, 그리고 고상한 아량에는 지적인 매력과 영적 흡인력이 있었다. 그는 수수했고 남자다웠으며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님**의 현존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육체적 및 지적(知的) 영향력과 더불어, 그의 인간성--곧 참을성, 부드러움, 온유함, 온화함, 및 겸손함--과 관련됐던, 존재의 그런 모든 영적 매력 또한 있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로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인간성을 지녔으며; 지적 능력과 영적 요새(要塞)였다. 그의 인격은 추종자 가운데서 영적 성향의 여자들뿐 아니라, 학식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 그리고 강인한 **로마** 병정의 마음도 움직였는데, 십자가를 지키며 머물던 지휘관은,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혈기왕성하고 역센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아주 유감스럽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는데; **예수**께서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려낸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전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위엄을 갖춘 성인(成人)이었으며; 섰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예수**께서는 약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타고난 신비적인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박력 있었다. 그는 의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선을 행했다.

주님은 결코, “나태하고 환상에 잠겨있는 너희 모두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반면에, “**수고**하는 너희 모두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휴식--곧 영적 힘--을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다. **주님**의 명에는 진정 쉬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각 개인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희생, 즉 자존심과 이기심을 포기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다. 자비를 나타냄으로, 모든 원한, 불평, 분노로부터, 그리고 이기적인 권력이나 복수를 갈망함으로부터,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죄를 묵과하거나 죄악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그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인격을 악하게 취급하는 것, 즉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이의 감정을 악하게 손상시키는 것을 참지 말라”고 가르치려 했다.

disciples. Jesus was truly a master of men; he exercised great influence over his fellow men because of the combined charm and force of his personality. There was a subtle commanding influence in his rugged, nomadic, and homeless life. There was intellectual attractiveness and spiritual drawing power in his authoritative manner of teaching, in his lucid logic, his strength of reasoning, his sagacious insight, his alertness of mind, his matchless poise, and his sublime tolerance. He was simple, manly, honest, and fearless. With all of this physical and intellectual influence manifest in the Master's presence, there were also all those spiritual charms of being which have become associated with his personality — patience, tenderness, meekness, gentleness, and humility.

141:3.5 (1589.6) Jesus of Nazareth was indeed a strong and forceful personality; he was an intellectual power and a spiritual stronghold. His personality not only appealed to the spiritually minded women among his followers, but also to the educated and intellectual Nicodemus and to the hardy Roman soldier, the captain stationed on guard at the cross, who, when he had finished watching the Master die, said, “Truly, this was a Son of God.” And red-blooded, rugged Galilean fishermen called him Master.

141:3.6 (1590.1) The pictures of Jesus have been most unfortunate. These paintings of the Christ have exerted a deleterious influence on youth; the temple merchants would hardly have fled before Jesus if he had been such a man as your artists usually have depicted. His was a dignified manhood; he was good, but natural. Jesus did not pose as a mild, sweet, gentle, and kindly mystic. His teaching was thrillingly dynamic. He not only *meant well*, but he went about actually *doing good*.

141:3.7 (1590.2) The Master never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indolent and all who are dreamers.” But he did many times say,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I will give you rest — spiritual strength.” The Master's yoke is, indeed, easy, but even so, he never imposes it; every individual must take this yoke of his own free will.

141:3.8 (1590.3) Jesus portrayed conquest by sacrifice, the sacrifice of pride and selfishness. By showing mercy, he meant to portray spiritual deliverance from all grudges, grievances, anger, and the lust for selfish power and revenge. And when he said, “Resist not evil,” he later explained that he did not mean to condone sin or to counsel fraternity with iniquity. He intended the more to teach forgiveness, to “resist not evil treatment of one's personality, evil injury to one's feelings of personal dignity.”

4. 아버지 에 관한 가르침

아마수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자녀들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기입하기에 몰두하는, 즉 모든 창조물의 **심판관**으로서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죄와 악을 기록하기에 온통 몰두하는, 능숙한 최고 장부 기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심지어 민족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이해해 왔지만, 필사적 사람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 관념을 **개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여겼던 적은 전혀 없었다.

“천국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종교는--곧 나의 복음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와 교훈에서 이 두 관념을 분명히 하려고, 육신을 입고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는 또한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관념으로부터 사도들의 정신을 해방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날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종교에 젖어 왔던 이 사람들은, 그가 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설명으로 사도들 전체를 이해시키기에 실패할 때, 메시지를 다시 말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다른 유형의 비유를 들곤 했다.

예수께서는 이때, 열두 사도의 사명인,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더 충분히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님**은, 전인{全人}--곧 남녀 개인을 형성하는 몸, 정신, 및 영의 합동--에 관해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인간의 질병에 대한 슬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를 그들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계속 설명했다. 그는 다음 것들을 인식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쳤다:

1. 육신의 질병 --보통 육체적인 병으로 간주되는 그런 고난.

2. 고통 받는 정신 --후일에 감정 및 정신의 어려움과 교란이라고 여기게 된, 그런 비육체적 질병.

3. 악한 영에 사로잡힘.

예수께서는,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악한 영들의 본성 및 기원에 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사도들에게 설명했다.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과 정신이상 사이

4. TEACHING ABOUT THE FATHER

141:4.1 (1590.4) While sojourning at Amathus, Jesus spent much time with the apostles instructing them in the new concept of God; again and again did he impress upon them that *God is a Father*, not a great and supreme bookkeeper who is chiefly engaged in making damaging entries against his erring children on earth, recordings of sin and evil to be used against them when he subsequently sits in judgment upon them as the just Judge of all creation. The Jews had long conceived of God as a king over all, even as a Father of the nation, but never before had large numbers of mortal men held the idea of God as a loving Father of the *individual*.

141:4.2 (1590.5) In answer to Thomas's question, "Who is this God of the kingdom?" Jesus replied: "God is your Father, and religion — my gospel —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the believing recognition of the truth that you are his son. And I am here among you in the flesh to make clear both of these ideas in my life and teachings."

141:4.3 (1590.6) Jesus also sought to free the minds of his apostles from the idea of offering animal sacrifices as a religious duty. But these men, trained in the religion of the daily sacrifice, were slow to comprehend what he meant. Nevertheless, the Master did not grow weary in his teaching. When he failed to reach the minds of all of the apostles by means of one illustration, he would restate his message and employ another type of parable for purposes of illumination.

141:4.4 (1590.7) At this same time Jesus began to teach the twelve more fully concerning their mission "to comfort the afflicted and minister to the sick." The Master taught them much about the whole man — the union of body, mind, and spirit to form the individual man or woman. Jesus told his associates about the three forms of affliction they would meet and went on to explain how they should minister to all who suffer the sorrows of human sickness. He taught them to recognize:

141:4.5 (1591.1) 1. Diseases of the flesh — those afflictions commonly regarded as physical sickness.

141:4.6 (1591.2) 2. Troubled minds — those nonphysical afflictions which were subsequently looked upon as emotional and mental difficulties and disturbances.

141:4.7 (1591.3) 3.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141:4.8 (1591.4) Jesus explained to his apostles on several occasions the nature, and something concerning the origin, of these evil spirits, in that day often also called unclean spirits. The Master

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그들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예수**께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악한 영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상승하고 나서, 천국이 위대한 능력과 영적 영광 속에 도래하게 될 때, 내가 내 영을 그 시대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난 후에는,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주가 거듭 되고, 달이 거듭되며, 이 온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well kn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and insanity, but the apostles did not. Neither was it possible, in view of their limited knowledge of the early history of Urantia, for Jesus to undertake to make this matter fully understandable. But he many times said to them, alluding to these evil spirits: “They shall no more molest men when I shall have ascended to my Father in heaven, and after I shall have poured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in those times when the kingdom will come in great power and spiritual glory.”

141:4.9 (1591.5) From week to week and from month to month, throughout this entire year, the apostle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healing ministry of the sick.

5. 영적 통일

아마수스에서 있었던 모든 저녁 회담 중에서 가장 중대했던 회담은, 영적 통일에 대한 토의와 관계된 시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물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기를 배우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서 더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 **예수**께서는 그의 영 속에 교란이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대답했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봐야 한다고 가르쳤느냐? 나는, 필사자들이 독창적인 개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영적 자유를 선포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자유로운 인격과 영적 독창성을 희생한 대가{代價}로, 사회적 조화나 우에 있는 평화를 얻게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사도들인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고, 연합하여 헌신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영 통일이다. 영적으로 **똑같아지기** 위하여, 너희가 똑같이 보거나 똑같이 느끼거나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적 통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선물인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지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사도로서 너희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 소망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싹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의 목적과 영적 이해가 완전히 통일되는 것을 너희가 체험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너희 각자에게 내주하는 **낙원** 영의 정체성을 서로 의식함에서 자라나며; 지적 사고{思考}, 개성이 강한 느낌, 및 사회적 행동 면에서 각자의 태도가 극도로 다양하더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심오한 영적 통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격은 신선하게 다채롭고 뚜렷이 다를지 모르지만, 신{神}을 경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적 본성과 영의 열매가 그렇게 통합되어, 너희의 생애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혼이 통일된 것을 틀림없이 인지할 것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고,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

5. SPIRITUAL UNITY

141:5.1 (1591.6) One of the most eventful of all the evening conferences at Amathus was the session having to do with the discussion of spiritual unity. James Zebedee had asked, “Master, how shall we learn to see alike and thereby enjoy more harmony among ourselves?”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was stirred within his spirit, so much so that he replied: “James, James, when did I teach you that you should all see alike?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proclaim spiritual liberty to the end that mortals may be empowered to live individual lives of originality and freedom before God. I do not desire that social harmony and fraternal peace shall be purchased by the sacrifice of free personality and spiritual originality. What I require of you, my apostles, is spirit unity — and that you can experience in the joy of your united dedication to the wholehearted doing of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You do not have to see alike or feel alike or even think alike in order spiritually to be alike. Spiritual unity is deriv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each of you is indwelt, and increasingly dominated, by the spirit gift of the heavenly Father. Your apostolic harmony must grow out of the fact that the spirit hope of each of you is identical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141:5.2 (1591.7) “In this way you may experience a perfected unity of spirit purpose and spirit understanding growing out of the mutual consciousness of the identity of each of your indwelling Paradise spirits; and you may enjoy all of this profound spiritual unity in the very face of the utmost diversity of your individual attitudes of intellectual thinking, temperamental feeling, and social conduct. Your personalities may be refreshingly diverse and markedly different, while your spiritual natures and spirit fruits of divine worship and brotherly love may be so unified that all who behold your lives will of a surety take cognizance of this spirit identity and soul unity;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고유하게 부여받은, 정신, 몸, 및 혼이라는 재능을 이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런 봉사를 베푸는 동안일지라도, 너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신도 각자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조화됨을 항상 발견할 것인데: 첫째로, 너희는 일생동안 봉사하려는 공통된 동기로 지배되며; 무엇보다도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공통된 실존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너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분처럼 돼있음을 우주에 증명한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훈련시키는 동안, 이 주제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의 종교 해석일지라도, 믿는 자들이 교리화되고 규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사도들에게, 신자를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으로, 천국 복음 안에 교리를 제정하거나 전통을 설립하지 말라고, 거듭 거듭 경고했다.

6. 아마수스에서 지낸 마지막 주간

아마수스에서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에, **열심당 시몬**이 **다마스쿠스**에서 사업하는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를 **예수**께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에 갔었으며, 거기서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는 **시몬**이 **테헤르마**를 가르치도록 했다. **테헤르마**가 불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한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애써 설명했지만, **시몬**은 그 **페르시아인**을 “불 숭배자”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한 후에, 그 **페르시아인**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더 머물러 있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열심당 시몬과 **예수**가 단 둘이 있게 되자, **시몬**이 **주님**께 물었다: “왜 나는 그를 설복시킬 수 없었습니까? 왜 그가 내게는 그렇게 저항하고, 당신께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찾는 자의 가슴으로부터 뭔가 끄집어내려 애쓰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이런 굶주린 혼 속으로 뭔가 집어넣으려 애쓰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느냐?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천국의 진리가, 곧 모든 심각한 오류를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필사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에게 설득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두움에 앉아 있

they will recognize that you have been with me and have thereby learned, and acceptably, how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You can achieve the unity of the service of God even while you render suc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que of your own original endowments of mind, body, and soul.

141:5.3 (1592.1) “Your spirit unity implies two things, which always will be found to harmonize in the lives of individual believers: First, you are possessed with a common motive for life service; you all desire above everything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Second, you all have a common goal of existence; you all purpose to find the Father in heaven, thereby proving to the universe that you have become like him.”

141:5.4 (1592.2) Many times during the training of the twelve Jesus reverted to this theme. Repeatedly he told them it was not his desire that those who believed in him should become dogmatized and standard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igious interpretations of even good men. Again and again he warned his apostles against the formulation of creeds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itions as a means of guiding and controlling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6. LAST WEEK AT AMATHUS

141:6.1 (1592.3) Near the end of the last week at Amathus, Simon Zelotes brought to Jesus one Teherma, a Persian doing business at Damascus. Teherma had heard of Jesus and had come to Capernaum to see him, and there learning that Jesus had gone with his apostles down the Jordan on the way to Jerusalem, he set out to find him. Andrew had presented Teherma to Simon for instruction. Simon looked upon the Persian as a “fire worshiper,” although Teherma took great pains to explain that fire was only the visible symbol of the Pure and Holy One. After talking with Jesus, the Persian signified his intention of remaining for several days to hear the teaching and listen to the preaching.

141:6.2 (1592.4) When Simon Zelotes and Jesus were alone, Simon asked the Master: “Why is it that I could not persuade him? Why did he so resist me and so readily lend an ear to you?” Jesus answered: “Simon, Simon, how many times have I instructed you to refrain from all efforts to take something out of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salvation? How often have I told you to labor only to put something into these hungry souls? Lead men into the kingdom, and the great and living truths of the kingdom will presently drive out all serious error. When you have presented to mortal man the good news that God is his Father, you can the easier persuade him that he is in

던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준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새롭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선포했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단지 부분적으로 봤던 그것의 완성된 장면을 너희에게 보여주려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천국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오고, 그 후에 그런 사람이 너희에게 질문할 때, 그때가 바로 신성한 천국 안에서 그 혼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데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할 때다.”

시몬은 이런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고,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천국의 새로운 삶에 관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말쑤한 일부는 이렇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다시 태어난다.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을 가르칠 수 없으며; 영의 진보된 길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들이 영으로 태어났는지 먼저 살펴봐라. 사람들을 성전으로 처음 데려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아들신분이라는 교리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항상 참아라. 그것은 너희의 나라가 아니며; 너희는 단지 대사일 뿐이다. 그제: 하늘 나라는 이렇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라--**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이며,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이 소식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다.”

아마수스에 체류하는 동안 사도들은 대단한 향상을 이뤘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대하는 문제에 관해 **예수**께서 아무 제안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심지어 세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예수**께서는: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 줬으나,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뿐이다.

7.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 및 큰 집단의 추종자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울까지 여행했는데, 그곳은 도래하는 나라에 대해 **요한**이 처음 선포한 장소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4주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여기에 있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을

reality a son of God. And having done that, you have brought the light of salvation to the one who sits in darkness. Simon, when the Son of Man came first to you, did he come denouncing Moses and the prophets and proclaiming a new and better way of life? No. I came not to take away that which you had from your forefathers but to show you the perfected vision of that which your fathers saw only in part. Go then, Simon, teaching and preaching the kingdom, and when you have a man safely and securely within the kingdom, then is the time, when such a one shall come to you with inquiries, to impart instruction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ive advancement of the soul within the divine kingdom.”

141:6.3 (1592.5) Simon was astonished at these words, but he did as Jesus had instructed him, and Teherma, the Persian, was numbered among those who entered the kingdom.

141:6.4 (1592.6) That night Jesus discoursed to the apostles on the new life in the kingdom. He said in part: “When you enter the kingdom, you are reborn. You cannot teach the deep things of the spirit to those who have been born only of the flesh; first see that men are born of the spirit before you seek to instruct them in the advanced ways of the spirit. Do not undertake to show men the beauties of the temple until you have first taken them into the temple. Introduce men to God and as the sons of God before you discourse on the doctrine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of men. Do not strive with men — always be patient. It is not your kingdom; you are only ambassadors. Simply go forth proclaiming: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 God is your Father and you are his sons, and this good news, if you wholeheartedly believe it, is your eternal salvation.”

141:6.5 (1593.1) The apostles made great progress during the sojourn at Amathus. But they were very much disappointed that Jesus would give them no suggestions about dealing with John’s disciples. Even in the important matter of baptism, all that Jesus said was: “John did indeed baptize with water, but when you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Spirit.”

7. AT BETHANY BEYOND JORDAN

141:7.1 (1593.2) On February 26, Jesus, his apostles, and a large group of followers journeyed down the Jordan to the ford near Bethany in Perea, the place where John first made proclamation of the coming kingdom. Jesus with his apostles remained here, teaching and preaching, for four weeks before they went on up to Jerusalem.

141:7.2 (1593.3) The second week of the sojourn at Bethany beyond Jordan,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into the hills across the river and

건너서 **여리고** 남쪽에 있는 언덕으로 3일 간 휴식을 떠났다. **주님**은 이 세 명에게 하늘 나라에 관한 새롭고 진보된 진리를 많이 가르쳤다.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제자들이 천국의 훌륭한 영 실체를 맛봤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봄으로써** 천국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신자들에게 천국의 길에 관해 묻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 그런 모든 진지한 진리 탐구자는, 신앙의 선물인 기쁜 소식을 언제나 듣고 싶어 하는데, 영원하고 신성한 영 실체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선물이 보장한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의 유일한 사업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곧 이 각 사람이 자녀임을 의식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신앙 자녀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근본 계시{啓示}는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는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다. **예수**의 종교는, 이 세상에 증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전적으로 기초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책, 법률, 또는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 주는 다른 형태의 인간 조직도 남겨놓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왔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모든 다른 인간관계보다 우선해야함을 분명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친밀한 영적 교제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 사이에 있는, 모든 사회 조건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준 유일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영적인 기쁨과 신성한 친교; 다음 세상에서는--**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영 실체들이 있는 곳까지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천국에 대한 교훈에서, **예수**께서는 제일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했던 것을 크게 강조했다. 그것은: 신앙으로 그리고 신앙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인간의 자유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는 혁명적 가르침이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로 그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 간 후에,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시대를 위한 진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이 자주 그의 교훈을 듣고 있을 때, 실제로 그가 하는 말씀에는, 다른 세계들에게 영감{靈感}을 주고 교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여줬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모든 세계를 위해 인생을 살았다.

south of Jericho for a three days' rest. The Master taught these three many new and advanced truth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For the purpose of this record we will reorganize and classify these teachings as follows:

141:7.3 (1593.4) Jesus endeavored to make clear that he desired his disciples, having tasted of the good spirit realities of the kingdom, so to live in the world that men, by *seeing* their lives, would become kingdom conscious and hence be led to inquire of believers concerning the ways of the kingdom. All such sincere seekers for the truth are always glad to *hear* the glad tidings of the faith gift which insures admission to the kingdom with its eternal and divine spirit realities.

141:7.4 (1593.5) The Master sought to impress upon all teach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their only business was to reveal God to the individual man as his Father — to lead this individual man to become son-conscious; then to present this same man to God as his faith son. Both of these essential revelations are accomplished in Jesus. He became, indeed,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religion of Jesus was wholly based on the living of his bestowal life on earth. When Jesus departed from this world, he left behind no books, laws, or other forms of human organization affecting the religious life of the individual.

141:7.5 (1593.6) Jesus made it plain that he had come to establish personal and eternal relations with men which should forever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human relationships. And he emphasized that this intimate spiritual fellowship was to be extended to all men of all ages and of all social conditions among all peoples. The only reward which he held out for his children was: in this world — spiritual joy and divine communion; in the next world — eternal life in the progress of the divine spirit realities of the Paradise Father.

141:7.6 (1593.7) Jesus laid great emphasis upon what he called the two truths of first import in the teachings of the kingdom, and they are: the attainment of salvation by faith, and faith alone, associated with the revolutionary teaching of the attainment of human liberty through the sincere recognition of truth,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esus was the truth made manifest in the flesh, and he promised to send his Spirit of Truth into the hearts of all his children after his return to the Father in heaven.

141:7.7 (1594.1) The Master was teaching these apostles the essentials of truth for an entire age on earth. They often listened to his teachings when in reality what he said was intended for the inspiration and edification of other worlds. He exemplified a new and original plan of life. From the human standpoint he was indeed a Jew, but he lived his life for all the world as a mortal of the realm.

예수께서는 천국의 계획을 펼쳐 보이면서 **아버지**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이들은 이전{以前} 시대에 대부분의 진화 종교들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계층이었다. 그는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범_세계적이었고, 우주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했으므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도 **예수**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 받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이 증여 사명을 맡게 된 것은, 땅에 있는 소수의 피조물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우주에 두루,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 인생의 표준을 세우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진리를, 이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 심지어 **만유의 아버지**의 최종 선{善}의 경지에 접근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 정신에게 영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파송된 교사로서 역할을 하러 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효과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강력한 웅변이나 감정적 호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인격 때문에 무척 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말씀했다. 그는 사람의 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정신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증여되기 전에,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이 지시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동역자”의 지시로 제한받는다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아버지** 뜻,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그렇게 전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만 동기를 뒀기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의 변치 않는 친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살았다. 순전히 필사적인 어떤 영향에 지배되거나, 연약한 인간적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 순간도 없었다. 대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찬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해를 밝히거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며; 결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시발점에서 끝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수**의 능력에 감탄했다. **주님**은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결코 흥분하거나 짜증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

141:7.8 (1594.2) To insure the recognition of his Father in the unfolding of the plan of the kingdom, Jesus explained that he had purposely ignored the “great men of earth.” He began his work with the poor, the very class which had been so neglected by most of the evolutionary religions of preceding times. He despised no man; his plan was world-wide, even universal. He was so bold and emphatic in these announcements that even Peter, James, and John were tempted to think he might possibly be beside himself.

141:7.9 (1594.3) He sought mildly to impart to these apostles the truth that he had come on this bestowal mission, not to set an example for a few earth creatures, but to establish and demonstrate a standard of human life for all peoples upon all worlds throughout his entire universe. And this standard approached the highest perfection, even the final goodness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 apostles could not grasp the meaning of his words.

141:7.10 (1594.4) He announced that he had come to function as a teacher, a teacher sent from heaven to present spiritual truth to the material mind. And this is exactly what he did; he was a teacher, not a preacher. From the human viewpoint Peter was a much more effective preacher than Jesus. Jesus' preaching was so effective because of his unique personality, not so much because of compelling oratory or emotional appeal. Jesus spoke directly to men's souls. He was a teacher of man's spirit, but through the mind. He lived with men.

141:7.11 (1594.5) It was on this occasion that Jesus intimated to Peter, James, and John that his work on earth was in some respects to be limited by the commission of his “associate on high,” referring to the prebestowal instruction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He told them that he had come to do his Father's will and only his Father's will. Being thus motivated by a wholehearted singleness of purpose, he was not anxiously bothered by the evil in the world.

141:7.12 (1594.6) The apostles were beginning to recognize the unaffected friendliness of Jesus. Though the Master was easy of approach, he always lived independent of, and above, all human beings. Not for one moment was he ever dominated by any purely mortal influence or subject to frail human judgment. He paid no attention to public opinion, and he was uninfluenced by praise. He seldom paused to correct misunderstandings or to resent misrepresentation. He never asked any man for advice; he never made requests for prayers.

141:7.13 (1594.7) James was astonished at how Jesus seemed to see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Master rarely appeared to be surprised. He was never excited, vexed, or disconcerted. He

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모든 신성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결국 그가 인간이었음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사생활은 아주 인간다웠지만, 정말로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이때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의 우아한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한 후에 솟아나와서, 훗날의 그들의 사역을 매우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줬다.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음은 이상하지 않은데, 그가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여리고에서 활동함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체류하던 4주 내, **안드레**는 매 주 두 명의 사도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했다. **여리고**에는 **요한**의 신도가 많이 있었고, 대다수는 **예수**와 사도들의 더 진보된 교훈을 환영했다. 사도들은 이번 **여리고** 방문에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예수**의 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도시에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공적{公的}인 일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천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의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지시한 것이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충분히 수행됐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췄고, **예수**와 상의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파견대표단을 만나게 됐다. 사도들은 여기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지만, 이 진리 탐구자들이 **동방**으로부터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그들과 3일을 보냈고, 그들은 하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어, 기뻐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9.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never apologized to any man. He was at times saddened, but never discouraged.

141:7.14 (1594.8) More clearly John recognized that, notwithstanding all of his divine endowments, after all, he was human. Jesus lived as a man among men and understood, loved, and knew how to manage men. In his personal life he was so human, and yet so faultless. And he was always unselfish.

141:7.15 (1595.1) Although Peter, James, and John could not understand very much of what Jesus said on this occasion, his gracious words lingered in their hearts, and after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they came forth greatly to enrich and gladden their subsequent ministry. No wonder these apostles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Master's words, for he was projecting to them the plan of a new age.

8. WORKING IN JERICHO

141:8.1 (1595.2) Throughout the four weeks' sojourn at Bethany beyond Jordan, several times each week Andrew would assign apostolic couples to go up to Jericho for a day or two. John had many believers in Jericho, and the majority of them welcomed the more advanced teachings of Jesus and his apostles. On these Jericho visits the apostles began more specifically to carry out Jesus' instructions to minister to the sick; they visited every house in the city and sought to comfort every afflicted person.

141:8.2 (1595.3) The apostles did some public work in Jericho, but their efforts were chiefly of a more quiet and personal nature. They now made the discovery that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as very comforting to the sick; that their message carried healing for the afflicted. And it was in Jericho that Jesus' commission to the twelve to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and minister to the afflicted was first fully carried into effect.

141:8.3 (1595.4) They stopped in Jericho on the way up to Jerusalem and were overtaken by a delegation from Mesopotamia that had come to confer with Jesus. The apostles had planned to spend but a day here, but when these truth seekers from the East arrived, Jesus spent three days with them, and they returned to their various homes along the Euphrates happy in the knowledge of the new truths of the kingdom of heaven.

9. DEPARTING FOR JERUSALEM

141:9.1 (1595.5) On Monday, the last day of March,

예루살렘을 향해 언덕을 지나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왔으며, **주님**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동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집에 본부를 두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남아 군중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으므로,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면서 5일간 여기에 머물렀다. **주님**과 사도들을 **나사로**의 집에 모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생에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들의 필요를 보살필 수 있었다.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며; **주님**과 열두 사도 모두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Jesus and the apostles began their journey up the hills toward Jerusalem. Lazarus of Bethany had been down to the Jordan twice to see Jesus, and every arrangement had been made for the Master and his apostles to make their headquarters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Bethany as long as they might desire to stay in Jerusalem.

141:9.2 (1595.6) The disciples of John remained at Bethany beyond the Jordan, teaching and baptizing the multitudes, so that Jesus was accompanied only by the twelve when he arrived at Lazarus's home. Here Jesus and the apostles tarried for five days, resting and refreshing themselves before going on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It was a great event in the lives of Martha and Mary to have the Master and his apostles in the home of their brother, where they could minister to their needs.

141:9.3 (1595.7) On Sunday morning, April 6, Jesus and the apostles went down to Jerusalem; and this was the first time the Master and all of the twelve had been there together.

제 142편 .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 141

유랜시아 책

143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42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섹션

소개

1. 성전에서 가르침
2. 하나님의 진노
3. 하나님 개념
4. 후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5. 확신에 대한 강연
6. 니고데모와 이야기함
7. 가족에 관한 수업
8. 남부 유대지방에서

PAPER 142

THE PASSOVER AT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Teaching in the Temple
2. God's Wrath
3. The Concept of God
4. Flavius and Greek Culture
5. The Discourse on Assurance
6. The Visit with Nicodemus
7. The Lesson on the Family
8. In Southern Judea

소개

4월에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저녁마다 성 밖으로 나갔고 베다니에서 밤을 지냈다. 예수 자신은, 그리스파 유대인인 후라비우스 집에서 매주 하루나 이틀 밤을 지냈으며, 그의 집으로 많은 저명한 유대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은밀히 찾아왔다.

예루살렘에서 첫 날에, 예수께서는 옛 친구인 안나스를 방문했는데, 그는 한때 대제사장이었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친척이었다. 안나스는 예수와 그의 교훈에 관해 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쌀쌀하게 대접했다. 예수께서 안나스의 냉랭함을 눈치 채고 곧 떠나면서 말씀했다: “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교만이 사람의 큰 약점인데;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기쁨과 자유를 파괴하는 이 두 가지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나 안나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사위와 함께 사람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INTRODUCTION

142:0.1 (1596.1) THE month of April Jesus and the apostles worked in Jerusalem, going out of the city each evening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Jesus himself spent one or two nights each week in Jerusalem at the home of Flavius, a Greek Jew, where many prominent Jews came in secret to interview him.

142:0.2 (1596.2) The first day in Jerusalem Jesus called upon his friend of former years, Annas, the onetime high priest and relative of Salome, Zebedee's wife. Annas had been hearing about Jesus and his teachings, and when Jesus called at the high priest's home, he was received with much reserve. When Jesus perceived Annas's coldness, he took immediate leave, saying as he departed: "Fear is man's chief enslaver and pride his great weakness; will you betray yourself into bondage to both of these destroyers of joy and liberty?" But Annas made no reply. The Master did not again see Annas until the time when he sat with his son-in-law in judgment on the Son of Man.

1. 성전에서 가르침

1. TEACHING IN THE TEMPLE

이 달 내내, **예수** 또는 사도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매일 가르쳤다. **유월절**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성전의 가르치는 장소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시되는 경내 밖에서 가르치는 여러 집단을 운영했다. 그들의 메시지의 취지는 이랬다:

1.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2.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 천국에서는 사랑이 삶의 규율이다 --**하나님**께 최상으로 헌신하는 동시에, 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4.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즉 각자 개인 생활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율법이다.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대중이 **예수**의 이런 가르침을 들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쁜 소식으로 환희에 넘쳤다. 제사장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와 사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게 됐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토의했다.

성전과 그 주변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사도 및 기타 신도들은 **유월절** 군중 가운데서 개인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느라 바빴다. 관심을 가진 이 남녀들이, **예수**께서 이번 **유월절** 경축행사에서 전한 메시지의 소식을, **로마 제국** 가장 먼 지방들과 또한 **동방**까지 전했다.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외부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예수**의 업무는 더 이상 **팔레스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 하나님의 진노

야곱이라는 **크레테**의 **유대인** 부자{富者} 상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는데, **안드레**에게 다가와서 **예수**와 사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했다. **안드레**는 다음 날 저녁 **후라비우스**의 집에서 **예수**와 이 비밀 회합을 갖도록 주선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납득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충분히 물어보려고 왔다. **야곱**이 **예수**께 말했다: “하지만 랍비여, **모세**와 옛 선지자들은, **야훼**가 질투하는 **하나님**, 아주 혹독하고 불같이 화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고 그의 율법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제자들은,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므로, 당신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새 하늘 나라로 저희를 환영하신다고 가르칩니다.”

142:1.1 (1596.3) Throughout this month Jesus or one of the apostles taught daily in the temple. When the Passover crowds were too great to find entrance to the temple teaching, the apostles conducted many teaching groups outside the sacred precincts. The burden of their message was:

142:1.2 (1596.4) 1.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142:1.3 (1596.5) 2. By faith in the fatherhood of God you may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us becoming the sons of God.

142:1.4 (1596.6) 3. Love is the rule of living within the kingdom — supreme devotion to God while loving your neighbor as yourself.

142:1.5 (1596.7) 4. Obedience to the will of the Father, yielding the fruits of the spirit in one's personal life, is the law of the kingdom.

142:1.6 (1596.8) The multitudes who came to celebrate the Passover heard this teaching of Jesus, and hundreds of them rejoiced in the good news.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of the Jews became much concerned about Jesus and his apostles and debated among themselves as to what should be done with them.

142:1.7 (1596.9) Besides teaching in and about the temple, the apostles and other believers were engaged in doing much personal work among the Passover throngs. These interested men and women carried the news of Jesus' message from this Passover celebration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Roman Empire and also to the East.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pread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outside world. No longer was the work of Jesus to be confined to Palestine.

2. GOD'S WRATH

142:2.1 (1597.1) There was in Jerusalem in attendance upon the Passover festivities one Jacob, a wealthy Jewish trader from Crete, and he came to Andrew making request to see Jesus privately. Andrew arranged this secret meeting with Jesus at Flavius's home the evening of the next day. This man could not comprehend the Master's teachings, and he came because he desired to inquire more fully about the kingdom of God. Said Jacob to Jesus: “But, Rabbi, Moses and the olden prophets tell us that Yahweh is a jealous God, a God of great wrath and fierce anger. The prophets say he hates evildoers and takes vengeance on those who obey not his law. You and your disciples teach us that God is a kind and compassionate Father who so loves all men that he would welcome them into this new kingdom of heaven, which you proclaim is so near

아굽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아굽아**, 너는 그들 시대의 빛에 따라서 그들 세대의 자녀를 가르쳤던 옛 선지자들의 교훈을 잘 표현했다. **낙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변치 않으신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모세** 시대에서 **아모스** 시대를 거쳐, 선지자 **이사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영광으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왔다.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선한 뜻을 전하는 메시지 함께,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때, 모든 국가 집단들 사이에서 좀 더 개선되고 나은 관계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버지와 그 자녀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세상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굽아**, 선하고 진실된 **아버지**는 가족을 전체로서--곧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식구 **개개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 숨을 돌리며 말씀했다: “**아굽아**, 너는 여러 자녀의 아버지이니, 내 말이 진리임을 잘 알 것이다.” 그러자 **아굽이** 말했다: “**주님**, 내가 여섯 아이의 아버지임을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나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만물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저희가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너는, 너를 향한--곧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뿐 아니라, 너 개인의 혼 곧 너를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네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미성숙할 때, 그리고 그들을 응징해야 할 때, 그들은 아버지가 화나고 무서운 분노로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바로잡으려는 아버지의 애정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成人} 남녀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께 관한 이런 잘못된 옛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어리석지 않겠느냐? 성인 남녀가 된 그들은 이제, 이런 모든 어렸을 적의 혼련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본성과 사랑 많으신 성품을 더 잘 이해할 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고집한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의 영적 계몽에서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아굽아**, 내가 말하겠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본적이 없는 **아버지**를, 너는 이 시간의 밝은 빛 아래서 봐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봄으로써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너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뜻이 이

at hand.”

142:2.2 (1597.2) When Jacob finished speaking, Jesus replied: “Jacob, you have well stated the teachings of the olden prophets who taught the children of their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ght of their day. Our Father in Paradise is changeless. But the concept of his nature has enlarged and grown from the days of Moses down through the times of Amos and even to the generation of the prophet Isaiah. And now have I come in the flesh to reveal the Father in new glory and to show forth his love and mercy to all men on all worlds. As the gospel of this kingdom shall spread over the world with its message of good cheer and good will to all men, there will grow up improved and better relations among the families of all nations. As time passes, fathers and their children will love each other more, and thus will be brought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ove of the Father in heaven for his children on earth. Remember, Jacob, that a good and true father not only loves his family as a whole — as a family — but he also truly loves and affectionately cares for each individual member.”

142:2.3 (1597.3)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of the heavenly Father's character, Jesus paused to say: “You, Jacob, being a father of many, know well the truth of my words.” And Jacob said: “But, Master, who told you I was the father of six children? How did you know this about me?” And the Master replied: “Suffice it to say that the Father and the Son know all things, for indeed they see all. Loving your children as a father on earth, you must now accept as a reality the love of the heavenly Father for you — not just for all the children of Abraham, but for you, your individual soul.”

142:2.4 (1597.4) Then Jesus went on to say: “When your children are very young and immature, and when you must chastise them, they may reflect that their father is angry and filled with resentful wrath. Their immaturity cannot penetrate beyond the punishment to discern the father's farseeing and corrective affection. But when these same children become grown-up men and women, would it not be folly for them to cling to these earlier and misconceived notions regarding their father? As men and women they should now discern their father's love in all these early disciplines. And should not mankind, as the centuries pass, come the better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and loving character of the Father in heaven? What profit have you from successive generations of spiritual illumination if you persist in viewing God as Moses and the prophets saw him? I say to you, Jacob, under the bright light of this hour you should see the Father as none of those who have gone before ever beheld him. And thus seeing him, you should rejoice to enter the

제부터 네 삶을 지배하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다: “랍비여, 내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 개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토론을, 열두 사도 대부분이 들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그날 밤에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가볍게 꾸짖었는데, 이렇게 말씀했다: **야훼** 관념의 성장에 관련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가 가르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유대** 민족의 발달 과정 전반에 걸친 **신격** 개념의 진화에 관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님**은 **하나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국면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1. **야훼** --**시나이** 씨족들의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킨, 원시 **신격**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신격**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얼마나 미숙하든지, 또는 신성의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지한 경배를 받으시 받아들이신다.

2. **지고자** {至高者}.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으며,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격** 관념을. 나중에 믿은 자들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파했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 숭배가 확립된 것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 에리온** -- 곧 **지고자 하나님** -- 을 신봉하는 자가 됐다. 이들이 지닌 것은 합성된 **하나님** 개념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사상과 **지고자** 교리가 함께 섞여있었다.

3. **엘 샤다이**. 이 초기 시절에, 많은 **히브리인**이 **엘 샤다이**를 숭배했는데, **이집트인**이 가졌던 하늘의 **하나님** 개념이었고, **히브리인**은 **나일 강** 지역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배웠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세 가지 **하나님** 개념이 전부 합쳐져서, 창조자 **신격**, 즉 **이스라엘의 주** {主} **하나님**의 교리를 형성했다.

4. **엘로힘**.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담** 시대부터 계속됐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성서**가 시작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는 그 기

kingdom wherein such a merciful Father rules, and you should seek to have his will of love dominate your life henceforth.”

142:2.5 (1598.1) And Jacob answered: “Rabbi, I believe; I desire that you lead me into the Father’s kingdom.”

3. THE CONCEPT OF GOD

142:3.1 (1598.2) The twelve apostles, most of whom had listened to this discussion of the character of God, that night asked Jesus many questions about the Father in heaven. The Master’s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st be presented by the following summary in modern phraseology:

142:3.2 (1598.3) Jesus mildly upbraided the twelve, in substance saying: Do you not know the traditions of Israel relating to the growth of the idea of Yahweh, and are you ignorant of the teaching of the Scriptures concerning the doctrine of God? And then did the Master proceed to instruct the apostles about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Deit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people. He called attention to the following phases of the growth of the God idea:

142:3.3 (1598.4) 1. *Yahweh* — the god of the Sinai clans. This was the primitive concept of Deity which Moses exalted to the higher level of the Lord God of Israel. The Father in heaven never fails to accept the sincere worship of his children on earth, no matter how crude their concept of Deity or by what name they symbolize his divine nature.

142:3.4 (1598.5) 2. *The Most High*. This concept of the Father in heaven was proclaimed by Melchizedek to Abraham and was carried far from Salem by those who subsequently believed in this enlarged and expanded idea of Deity. Abraham and his brother left Ur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sun worship, and they became believers in Melchizedek’s teaching of El Elyon — the Most High God. Theirs was a composite concept of God, consisting in a blending of their older Mesopotamian ideas and the Most High doctrine.

142:3.5 (1598.6) 3. *El Shaddai*. During these early days many of the Hebrews worshiped El Shaddai, the Egyptian concept of the God of heaven, which they learned about during their captivity in the land of the Nile. Long after the times of Melchizedek all three of these concepts of God became joined together to form the doctrine of the creator Deity, the Lord God of Israel.

142:3.6 (1598.7) 4. *Elohim*. From the times of Adam the teaching of the Paradise Trinity has persisted. Do you not recall how the Scriptures begin by asserting that “In the beginning the Gods created

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한 분이신 세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 선조의 종교에 자리잡았음을 나타낸다.

5. **최고 야훼**. **이사야** 시대 무렵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런 믿음들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는데, 그는 전능한 동시에 전적으로 자비로운 분이였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종교에 있던 이전의 모든 관념을, 이런 진화되고 확대되어가는 **하나님** 개념이 실제로 대체했다.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상승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끝없는 시대들 내내, 이 **낙원 신격**들의 본성과 사역을 드러내는 일이,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 어느 인간이든지, 진정으로 경배 드린다면--곧 개인의 영적 발달에 관계된다면--, 내주하는 영은 그 경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경의{敬意}로 인식한다.

사도들은, 이전 세대 **유대인**의 정신 속에서 성장한 **하나님** 개념을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처럼, 그토록 심하게 충격 받은 적이 없었으며; 너무 어리둥절해서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침묵하면서 **예수** 앞에 앉았을 때, **주님**이 계속 말씀했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다면,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주**{主}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서 저희를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는 구절을 **사무엘**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사무엘**의 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은, **야훼**가 선과 악을 둘 다 창조했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인** 개념이 확대된 뒤에, 후세의 기자{記者}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감히 악을 **야훼**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기록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했는지, **성서**의 그런 기록들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 확대된 신성{神性} 개념들과 완전히 발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이해가 성장했음을, 너희는 다시 분별해야 할 것이다. **야훼** 개념이 확대되어 계시되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십계명{十誡命}이 있었고, 이것은 **시내산** 앞에서 야영하던 바로 그때까지 그들의 율법으로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 1.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주는**

the heavens and the earth”? This indicates that when that record was made the Trinity concept of three Gods in one had found lodgment in the religion of our forebears.

142:3.7 (1598.8) 5. *The Supreme Yahweh.* By the times of Isaiah these beliefs about God had expanded into the concept of a Universal Creator who was simultaneously all-powerful and all-merciful. And this evolving and enlarging concept of God virtually supplanted all previous ideas of Deity in our fathers' religion.

142:3.8 (1598.9) 6. *The Father in heaven.* And now do we know God as our Father in heaven. Our teaching provides a religion wherein the believer is a son of God. That i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Coexistent with the Father are the Son and the Spirit, and the revelation of the nature and ministry of these Paradise Deities will continue to enlarge and brighten throughout the endless ages of the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At all times and during all ages the true worship of any human being — as concerns individual spiritual progress — is recognized by the indwelling spirit as homage rendered to the Father in heaven.

142:3.9 (1599.1) Never before had the apostles been so shocked as they were upon hearing this recounting of the growth of the concept of God in the Jewish minds of previous generations; they were too bewildered to ask questions. As they sat before Jesus in silence, the Master continued: “And you would have known these truths had you read the Scriptures. Have you not read in Samuel where it says: ‘And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so much so that he moved David against them, saying, go number Israel and Judah’? And this was not strange because in the days of Samuel the children of Abraham really believed that Yahweh created both good and evil. But when a later writer narrated these events, subsequent to the enlargement of the Jewish concept of the nature of God, he did not dare attribute evil to Yahweh; therefore he said: ‘And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and provoked David to number Israel.’ Cannot you discern that such records in the Scriptures clearly show how the concept of the nature of God continued to grow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142:3.10 (1599.2) “Again should you have discerned the growth of the understanding of divine law in perfect keeping with these enlarging concepts of divinity.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ame out of Egypt in the days before the enlarged revelation of Yahweh, they had ten commandments which served as their law right up to the times when they were encamped before Sinai. And these ten commandments were:

142:3.11 (1599.3) “1.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2. 우상{偶像}을 부어 만들지 마라.

“ 3. 무교절 지키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 4. 모든 남자 또는 수컷 가축 중에서 첫_태생은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 5. 너희가 6일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7일에는 쉬어라.

“ 6. 첫 열매의 축제와 연말에 수확의 축제 지키기를 거르지 마라.

“ 7. 어떤 희생 제물이든지 그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 8. **유월절** 축제의 희생 제물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 9. 토지의 첫 열매 중에서 처음 것을 **주** 너의 **하나님** 전으로 가져오라.

“ 10.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모세**는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로, **신격**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에 어울리는 새로운 십계명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너희는 이런 계명이 **성서**에 두 번 기록됐다는 것, 즉 처음 것에서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였다고 한 반면, 나중 기록에서는 우리 선조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창조 사건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라고 인정하도록 바뀌었음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느냐?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더 큰 영적 깨우침을 받아서-- 이 부정적 십계명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다시 한번 변경됐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나 역시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사람이 지킬 전체 임무다.”

말씀을 마쳤을 때,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for the Lord is a jealous God.

142:3.12 (1599.4) “2. You shall not make molten gods.

142:3.13 (1599.5) “3. You shall not neglect to keep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142:3.14 (1599.6) “4. Of all the males of men or cattle, the first-born are mine, says the Lord.

142:3.15 (1599.7) “5. Six days you may work,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rest.

142:3.16 (1599.8) “6. You shall not fail to observe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and the feast of the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142:3.17 (1599.9) “7. You shall not offer the blood of any sacrifice with leavened bread.

142:3.18 (1599.10) “8. The sacrifice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shall not be left until morning.

142:3.19 (1599.11) “9. The first of the first fruits of the ground you shall bring 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142:3.20 (1599.12) “10. You shall not seethe a kid in its mother's milk.

142:3.21 (1599.13) “And then, amidst the thunders and lightnings of Sinai, Moses gave them the new ten commandments, which you will all allow are more worthy utterances to accompany the enlarging Yahweh concepts of Deity. And did you never take notice of these commandments as twice recorded in the Scriptures, that in the first case deliverance from Egypt is assigned as the reason for Sabbath keeping, while in a later record the advancing religious beliefs of our forefathers demanded that this be changed to the recognition of the fact of creation as the reason for Sabbath observance?

142:3.22 (1599.14) “And then will you remember that once again — in the greater spiritual enlightenment of Isaiah's day — these ten negative commandments were changed into the great and positive law of love, the injunction to love God supremely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it is this supreme law of love for God and for man that I also declare to you as constituting the whole duty of man.”

142:3.23 (1600.1)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no man asked him a question. They went, each one to his sleep.

4. 후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유대인인 후라비우스**는, 할레나 세례를 모두 받지 않았던, 할레를 행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였으며, 그림과 조각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었으므로, **예루살렘**에 머물 때 기거하는 그 집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이 집은, 그가 세계 여행 중에 사방에서 수집한, 매우 귀중한 보물로 절

4. FLAVIUS AND GREEK CULTURE

142:4.1 (1600.2) Flavius, the Greek Jew, was a proselyte of the gate, having been neither circumcised nor baptized; and since he was a great lover of the beautiful in art and sculpture, the house which he occupied when sojourning in Jerusalem was a beautiful edifice. This home was

묘하게 장식돼 있었다. 그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소위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들로 인해, **주님**을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소유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대신, **후라비우스**가 좋아하는 모든 조각상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각 물건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을 했으므로, **후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은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 하는 것을 봤으며; 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는 왜, 내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예술적 손으로 만든 물건의 아름다움을 네가 알아본 것 때문에 비난받으리라고 추측했느냐? **모세**가 한때 우상과 거짓 신들 숭배를 금했다고 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재성한 것에 왜 모든 사람이 얼굴을 찡그려야 하겠느냐? **후라비우스**야, 네게 말하겠는데, **모세**의 자손은 그를 오해했으며, 그가 금지했던 형상,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림으로, 지금도 거짓 신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지성인들에게 그런 금지조항을 가르쳤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우주의 **영 통치자**라고 계시된 오늘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후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숭배하지 말라, 저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억제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의 최상의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 임무는 두 가지 큰 특권으로 표현되는 데: **낙원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동료 사람들에게 쏟는 사랑의 봉사가 그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됐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애에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이 새로운 계시가, **창조주 아버지**를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혼동하는 일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충명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즐기는 것과, 모든 사물 및 존재의 **하나님**이신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즐겨도 좋다.”

후라비우스는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다음 날 **요단**을 지나 **베다니**로 가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직 신자에게 세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라비우스**는 **예루살**

exquisitely adorned with priceless treasures which he had gathered up here and there on his world travels. When he first thought of inviting Jesus to his home, he feared that the Master might take offense at the sight of these so-called images. But Flavius was agreeably surprised when Jesus entered the home that, instead of rebuking him for having these supposedly idolatrous objects scattered about the house, he manifested great interest in the entire collection and asked many appreciative questions about each object as Flavius escorted him from room to room, showing him all of his favorite statues.

142:4.2 (1600.3) The Master saw that his host was bewildered at his friendly attitude toward art; therefore, when they had finished the survey of the entire collection, Jesus said: “Because you appreciate the beauty of things created by my Father and fashioned by the artistic hands of man, why should you expect to be rebuked? Because Moses onetime sought to combat idolatry and the worship of false gods, why should all men frown upon the reproduction of grace and beauty? I say to you, Flavius, Moses’ children have misunderstood him, and now do they make false gods of even his prohibitions of images and the likeness of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But even if Moses taught such restrictions to the darkened minds of those days, what has that to do with this day when the Father in heaven is revealed as the universal Spirit Ruler over all? And, Flavius, I declare that in the coming kingdom they shall no longer teach, ‘Do not worship this and do not worship that’; no longer shall they concern themselves with commands to refrain from this and take care not to do that, but rather shall all be concerned with one supreme duty. And this duty of man is expressed in two great privileges: sincere worship of the infinite Creator, the Paradise Father, and loving service bestowed upon one’s fellow men. If you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you really know that you are a son of God.

142:4.3 (1600.4) “In an age when my Father was not well understood, Moses was justified in his attempts to withstand idolatry, but in the coming age the Father will have been revealed in the life of the Son; and this new revelation of God will make it forever unnecessary to confuse the Creator Father with idols of stone or images of gold and silver. Henceforth, intelligent men may enjoy the treasures of art without confusing such material appreciation of beauty with the worship and service of the Father in Paradise, the God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142:4.4 (1600.5) Flavius believed all that Jesus taught him. The next day he went to Bethany beyond the Jordan and was baptized by the disciples of John. And this he did because the apostles of Jesus did not yet baptize believers. When Flavius returned

렘으로 돌아오자, **예수**를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는데, 60명의 친구를 초대했다. 그리고 이 손님들 가운데 많은 이들 역시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됐다.

5. 확신에 대한 강연

예수께서 이 **유월절** 주간에 성전에서 전한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는, **다마스커스** 사람인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랍비**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당신과 제자들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는 내 메시지와 내 제자들의 가르침에 관해서 그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의 진리를 전파한다면, 우리 메시지가 참됨을 그 영이 너희 마음 속에서 증거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받아들이실지 확신하는 문제에 관해서, 너희에게 묻겠는데, 너희 가운데 홀륭하고 인정 많은 아버지라면, 자녀가 자신도 가족 가운데 하나인지, 또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나는 애정을 확실히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놔두겠느냐? 너희는 이 세상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인간적인 너희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불안하게 의심하도록, 자녀 괴롭히기를 기뻐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으로 자녀 된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신분에 있을지 불안하게 의심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진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는 영원하고 신성한 아들신분에 관련되는 어떤 일에서든지, 너희의 자격과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하늘 시민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자격을 얻는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너희는 신성한 천국에서 진보하는 영생을 획득하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최상급** 영이 너희 영과 함께 증거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며; 영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권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모든 불확실성, 즉 너희의 신앙까지도 정복하는 승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절에 대해 말했다: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는, 의의 결과로, 영원한 화평, 평안, 및 확신이 이뤄지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내가 확실히 보증하는데, 영원한 자비와 영생이 있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저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천국의 이 복음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

to Jerusalem, he made a great feast for Jesus and invited sixty of his friends. And many of these guests also became believers in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5. THE DISCOURSE ON ASSURANCE

142:5.1 (1601.1) One of the great sermons which Jesus preached in the temple this Passover week was in answer to a question asked by one of his hearers, a man from Damascus. This man asked Jesus: “But, Rabbi, how shall we know of a certainty that you are sent by God, and that we may truly enter into this kingdom which you and your disciples declare is near at hand?” And Jesus answered:

142:5.2 (1601.2) “As to my message and the teaching of my disciples, you should judge them by their fruits. If we proclaim to you the truths of the spirit, the spirit will witness in your hearts that our message is genuine. Concerning the kingdom and your assurance of acceptance by the heavenly Father, let me ask what father among you who is a worthy and kindhearted father would keep his son in anxiety or suspense regarding his status in the family or his place of security in the affections of his father’s heart? Do you earth fathers take pleasure in torturing your children with uncertainty about their place of abiding love in your human hearts? Neither does your Father in heaven leave his faith children of the spirit in doubtful uncertainty as to their position in the kingdom. If you receive God as your Father, then indeed and in truth are you the sons of God. And if you are sons, then are you secure in the position and standing of all that concerns eternal and divine sonship. If you believe my words, you thereby believe in Him who sent me, and by thus believing in the Father, you have made your status in heavenly citizenship sure. If you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you shall never fail in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life of progress in the divine kingdom.

142:5.3 (1601.3) “The Supreme Spirit shall bear witness with your spirits that you are truly the children of God. And if you are the sons of God, then have you been born of the spirit of God; and whosoever has been born of the spirit has in himself the power to overcome all doubt,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all uncertainty, even your faith.

142:5.4 (1601.4) “Said the Prophet Isaiah, speaking of these times: ‘When the spirit is poured upon us from on high, then shall the work of righteousness become peace, quietness, and assurance forever.’ And for all who truly believe this gospel, I will become surety for their reception into the eternal mercies and the everlasting life of my Father’s kingdom. You, then, who hear this message and

이며; 너희가 영으로 난 자들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이다.”

경청하던 무리는 여러 시간 함께 남아 **예수**께 질문했고, 위안을 주는 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다.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담대해져서, 천국 복음을 좀 더 힘차고 확신 있게 전파하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겪은 이 체험으로, 열두 사도는 큰 영감을 받았다. 이토록 수많은 인파와 그들이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귀중한 훈계를 배웠고, 이것이 후일에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6. 니고데모와 이야기함

어느 날 저녁에, **후라비우스**의 집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부자였고 **유대인 산헤드린**의 나이 많은 회원이었다. 그는 이 **갈릴리** 사람의 교훈에 대해 소문을 많이 들었으며,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예수**께서 성전 정원에서 가르칠 때 그의 말을 들으러 갔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그의 가르침에 참여한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발견될까봐 두려워했는데, **유대인** 통치자들이 이미 **예수**께 너무 적대감을 가져서,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누구도 **예수**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이날 저녁 어두워진 후에 **예수**와 사적(私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드레**와 약속했었다. 대화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후라비우스**의 정원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집안으로 나중에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맞으면서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으며;그와 이야기하면서 타협이나 지나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은밀한 방문객을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아무 빈정거림도 하지 않았다. 이 저명한 방문객을 대하는 모든 면에서, **예수**께서는 침착했고 열심이었고 품위 있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식 대표자가 아니었으며;**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교훈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후라비우스가 소개한 후에, **니고데모**가 말했다:“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니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래하는 나라에 관한 당신의 교훈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했다:“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re the sons of God, and you have life everlasting; and the evidence to all the world that you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is that you sincerely love one another.”

142:5.5 (1601.5) The throng of listeners remained many hours with Jesus, asking him questions and listening attentively to his comforting answers. Even the apostles were emboldened by Jesus' teaching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with more power and assurance. This experience at Jerusalem was a great inspiration to the twelve. It was their first contact with such enormous crowds, and they learned many valuable lessons which proved of great assistance in their later work.

6. THE VISIT WITH NICODEMUS

142:6.1 (1601.6) One evening at the home of Flavius there came to see Jesus one Nicodemus, a wealthy and elderly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He had heard much about the teachings of this Galilean, and so he went one afternoon to hear him as he taught in the temple courts. He would have gone often to hear Jesus teach, but he feared to be seen by the people in attendance upon his teaching, for already were the rulers of the Jews so at variance with Jesus that no member of the Sanhedrin would want to be identified in any open manner with him. Accordingly, Nicodemus had arranged with Andrew to see Jesus privately and after nightfall on this particular evening. Peter, James, and John were in Flavius's garden when the interview began, but later they all went into the house where the discourse continued.

142:6.2 (1602.1) In receiving Nicodemus, Jesus showed no particular deference; in talking with him, there was no compromise or undue persuasiveness. The Master made no attempt to repulse his secretive caller, nor did he employ sarcasm. In all his dealings with the distinguished visitor, Jesus was calm, earnest, and dignified. Nicodemus was not an official delegate of the Sanhedrin; he came to see Jesus wholly because of his personal and sincere interest in the Master's teachings.

142:6.3 (1602.2) Upon being presented by Flavius, Nicodemus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sent by God, for no mere man could so teach unless God were with him. And I am desirous of knowing more about your teachings regarding the coming kingdom."

142:6.4 (1602.3) Jesus answered Nicodemus: "Verily, verily, I say to you, Nicodemus, except a man be born from above,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Then replied Nicodemus: "But how can a man be born again when he is old? He cannot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럼에도 네게 단언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나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내는 소리는 네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고,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렇다. 영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영을 실제로 식별할 수는 없다.”

니고데모가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 모든 일을 모르느냐? 그래서 영의 실체들을 아는 사람은, 단지 물질 세상의 현상만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드러내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네게 하늘의 진리를 말한다면 네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만한 용기가 너에게 있느냐?”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했다: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나를 개조시킬 이 영을, 어떻게 내게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네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영의 인도를 선택함으로써 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으로 태어난 너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고 나면, 너는 매일의 삶에서 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니고데모는 무척 진지했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어리둥절한 채 떠났다. **니고데모**는, 자아_발달, 자아_자제, 그리고 높은 경지의 도덕적 특성까지도 성취했다. 그는 세련되고 자기 중심적인 동시에 이타적이었지만; 현명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의지를 복종시키듯이 신성한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방법은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복종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한 천국에서 진화하는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천국을 소유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산헤드린**의 동료들이 심문하지 않고 **예수**께 죄를 씌우는 것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반대했으며; 나중에 대부분의 제자들까지 **주님**의 마지막 수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 도망쳤을 때에도,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142:6.5 (1602.4) Jesus said: “Nevertheless, I declare to you, except a man be born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But you should not marvel that I said you must be born from above. When the wind blows, you hear the rustle of the leaves, but you do not see the wind — whence it comes or whither it goes — and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With the eyes of the flesh you can behold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but you cannot actually discern the spirit.”

142:6.6 (1602.5) Nicodemus replied: “But I do not understand — how can that be?” Said Jesus: “Can it be that you are a teacher in Israel and yet ignorant of all this? It becomes, then, the duty of those who know about the realities of the spirit to reveal these things to those who discern only the manifestations of the material world. But will you believe us if we tell you of the heavenly truths? Do you have the courage, Nicodemus, to believe in one who has descended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142:6.7 (1602.6) And Nicodemus said: “But how can I begin to lay hold upon this spirit which is to remake me in preparation for entering into the kingdom?” Jesus answered: “Already does the spirit of the Father in heaven indwell you. If you would be led by this spirit from above, very soon would you begin to see with the eyes of the spirit, and then by the wholehearted choice of spirit guidance would you be born of the spirit since your only purpose in living would be to do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And so finding yourself born of the spirit and happily in the kingdom of God, you would begin to bear in your daily life the abundant fruits of the spirit.”

142:6.8 (1602.7) Nicodemus was thoroughly sincere. He was deeply impressed but went away bewildered. Nicodemus was accomplished in self-development, in self-restraint, and even in high moral qualities. He was refined, egoistic, and altruistic; but he did not know how to *submit* his will to the will of the divine Father as a little child is willing to submit to the guidance and leading of a wise and loving earthly father, thereby becoming in reality a son of God, a progressive heir of the eternal kingdom.

142:6.9 (1603.1) But Nicodemus did summon faith enough to lay hold of the kingdom. He faintly protested when his colleagues of the Sanhedrin sought to condemn Jesus without a hearing; and with Joseph of Arimathea, he later boldly acknowledged his faith and claimed the body of Jesus, even when most of the disciples had fled in fear from the scenes of their Master's final suffering and death.

7. 가족에 관한 수업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간에 가르치고 개인을 상대로 일하면서 바쁘게 지낸 후에, **예수**께서는 다음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쉬면서 보냈다. 그날 오후에 **도마**가 질문을 했고, 길고 교훈이 될 만한 대답을 얻어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대사로 출발하던 날, 우리의 개인 생활 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군중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좀 더 완전하게 도래한 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노예를 소유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은 가난을 추구하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자비만 전파하고, 율법과 응보는 더 이상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와 열두 사도는, **도마**의 질문에 관해 토의하면서, 그날 오후와 저녁 식사 후의 모든 밤 시간을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독특한 생애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과, 열두 사도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런 중여 체험에 참여하도록 소명 받았음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했으며; 따라서 그런 동업자로서, 그들 역시 이 중여 체험 내내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과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심정과 사람의 바로 그 깊은 혼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오직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넉넉히 암시했다.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는 진화하는 체험인데, 여기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낙원**에 이르는 연속되는 생애 정거장들을 통해서 진보해 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히 설명했다. 그 밤중에 그는, 천국이 발전해 가는 미래의 어떤 단계에, 자신이 영적 권능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다음에 그는, “천국 관념”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대인**이 천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이 도래하는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교했으므로, 그런 언어 상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서 천국 복음을 표현할 때-- 곧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 즉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임을 사람이 이해할 때--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하늘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의 가족에 대한 약간 긴 강론을 했는데, 두 가지 근본 생활 법칙을 다시 언급했다: 첫째 계명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며, 둘째 계명은 네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자녀들끼리의 상호적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그

7. THE LESSON ON THE FAMILY

142:7.1 (1603.2) After the busy period of teaching and personal work of Passover week in Jerusalem, Jesus spent the next Wednesday at Bethany with his apostles, resting. That afternoon, Thomas asked a question which elicited a long and instructive answer. Said Thomas: “Master, on the day we were set apart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you told us many things, instructed us regarding our personal mode of life, but what shall we teach the multitude? How are these people to live after the kingdom more fully comes? Shall your disciples own slaves? Shall your believers court poverty and shun property? Shall mercy alone prevail so that we shall have no more law and justice?” Jesus and the twelve spent all afternoon and all that evening, after supper, discussing Thomas’s ques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rd we present the following summary of the Master’s instruction:

142:7.2 (1603.3) Jesus sought first to make plain to his apostles that he himself was on earth living a unique life in the flesh, and that they, the twelve, had been called to participate in this bestowal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and as such coworkers, they, too, must share in many of the special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of the entire bestowal experience. There was a veiled intimation that the Son of Man was the only person who had ever lived on earth who could simultaneously see into the very heart of God and into the very depths of man’s soul.

142:7.3 (1603.4) Very plainly Jesus explained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n evolutionary experience, beginning here on earth and progressing up through successive life stations to Paradise. In the course of the evening he definitely stated that at some future stage of kingdom development he would revisit this world in spiritual power and divine glory.

142:7.4 (1603.5) He next explained that the “kingdom idea” was not the best way to illustrate man’s relation to God; that he employed such figures of speech because the Jewish people were expecting the kingdom, and because John had preached in terms of the coming kingdom. Jesus said: “The people of another age will better underst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it is presented in terms expressive of the family relationship — when man understands religion as the teaching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sonship with God.” Then the Master discoursed at some length on the earthly family as an illustration of the heavenly family, restating the two fundamental laws of living: the first commandment of love for the father,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second commandment of

는, 그런 형제간 애정의 특성은, 반드시 이타적으로 사랑으로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에, 가정생활의 근본적 특질에 관한, 그리고 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잊지 못할 토론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가족은 다음의 일곱 가지 사실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했다:

1. **실존에 관한 사실.** 본성이 관련되는 것과 필사자가 서로 유사한 현상은, 가족 안에서 맺어 지는데:자녀는 부모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는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겨나며;인격체가 실존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자연에 내재하고, 모든 살아있는 실존에 널리 퍼져있다.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는 자녀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것 또한 기뻐한다.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나중의 생애에서 그들이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4.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는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녀에게 필요한, 단련, 인도, 및 교정을 마련하며, 때로는 금지조치도 마련한다.

5. **동무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친근하게 사랑하는 교제를 자녀와 나눈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 사항에 항상 열려있으며;그들의 고난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돼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둔다.

6. **사랑과 자비.** 인성어린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하며;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앙갚음 하려는 기억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재판관, 적, 또는 채권자와는 다르다. 진정한 가족은, 아량, 인내, 및 용서에 기반을 둔다.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기 원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가 시작됨을 표시할 뿐이다. 죽음은 개인의 생애를 끝낼 뿐이고, 가족을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가족생활의 이 특색을, 이 세상 자녀인 사람과 **낙원 아버지**인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여러 시간 토의했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나는 자녀와 **아버지**의 이런 모든 관계를 완

mutual love among the children, to love your brother as yourself. And then he explained that such a quality of brotherly affection would invariably manifest itself in unselfish and loving social service.

142:7.5 (1603.6) Following that, came the memorable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family life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God and man. Jesus stated that a true family is founded on the following seven facts:

142:7.6 (1604.1) 1. *The fact of existence.* The relationships of nature and the phenomena of mortal likenesses are bound up in the family: Children inherit certain parental traits. The children take origin in the parents; personality existence depends on the act of the parent. The relationship of father and child is inherent in all nature and pervades all living existences.

142:7.7 (1604.2) 2. *Security and pleasure.* True fathers take great pleasure in providing for the needs of their children. Many fathers are not content with supplying the mere wants of their children but enjoy making provision for their pleasures also.

142:7.8 (1604.3) 3. *Education and training.* Wise fathers carefully plan for the education and adequate training of their sons and daughters. When young they are prepared for the greater responsibilities of later life.

142:7.9 (1604.4) 4. *Discipline and restraint.* Farseeing fathers also make provision for the necessary discipline, guidance, correction, and sometimes restraint of their young and immature offspring.

142:7.10 (1604.5) 5. *Companionship and loyalty.* The affectionate father holds intimate and loving intercourse with his children. Always is his ear open to their petitions; he is ever ready to share their hardships and assist them over their difficulties. The father is supremely interested in the progressive welfare of his progeny.

142:7.11 (1604.6) 6. *Love and mercy.* A compassionate father is freely forgiving; fathers do not hold vengeful memories against their children. Fathers are not like judges, enemies, or creditors. Real families are built upon tolerance, patience, and forgiveness.

142:7.12 (1604.7) 7. *Provision for the future.* Temporal fathers like to leave an inheritance for their sons. The family continue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Death only ends one generation to mark the beginning of another. Death terminates an individual life but not necessarily the family.

142:7.13 (1604.8) For hours the Master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these features of family life to the relations of man, the earth child, to God, the Paradise Father. And this was his conclusion: “This entire relationship of a son to the Father, I

전하게 알려; 너희가 영원한 미래에 달성해야 하는 완전한 아들신분을 나는 지금 이미 달성했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됐고, 그래서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넓게 열려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예수**께서 세례 받던 날 **요한**이 선언했던 것을 상기했고, 또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했다.

예수는, 신성한 **아들**, 즉 **만유의 아버지**께서 완전히 신뢰하는 분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온전히 납득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서 완전히 만족하실 만큼 이 세상 생애를 살았고, 이 육신화로 말미암아, 사람을 충분히 납득하시게 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진실한 신자가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운명지어진, 그런 완전성을 달성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냈고, 그 영역의 완전하게 된 자녀를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제시했다.

예수께서 여러 시간 말씀했음에도,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의 귀로 듣는 역량을 획득할 것이냐? 너는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과, 내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이심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하늘의 영 가족, 즉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 최고아버지이신 그 가족의 영적 자녀로 대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 직무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를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 가족을 사용하도록,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네 정신 속에서 천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에서 분리시킬 수 없겠느냐? 내가 영의 언어로 말할 때, 단지 예를 들려는 목적으로 평범하고 문자 그대로의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너는 왜 내 의미를 육신의 언어로 해석하려고 고집 하느냐? 애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문제, 땅 같은 웅졸한 문제나 인간의 공평과 공의라는 물질 문제에 적용하기를 중지하기 바란다. 이런 현세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의 관심거리이며,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내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 받았다. 너희는 영적인 나라의 영적 대사, 곧 영이

know in perfection, for all that you must attain of sonship in the eternal future I have now already attained. The Son of Man is prepared to ascen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so that in me is the way now open still wider for all of you to see God and, ere you have finished the glorious progression, to becom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142:7.14 (1604.9) When the apostles heard these startling words, they recalled the pronouncements which John made at the time of Jesus' baptism, and they also vividly recalled this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their preaching and teaching subsequent to the Master's death and resurrection.

142:7.15 (1604.10) Jesus is a divine Son, one in the Universal Father's full confidence. He had been with the Father and comprehended him fully. He had now lived his earth life to the full satisfaction of the Father, and this incarnation in the flesh had enabled him fully to comprehend man. Jesus was the perfection of man; he had attained just such perfection as all true believers are destined to attain in him and through him. Jesus revealed a God of perfection to man and presented in himself the perfected son of the realms to God.

142:7.16 (1605.1) Although Jesus discoursed for several hours, Thomas was not yet satisfied, for he said: “But, Master, we do not find that the Father in heaven always deals kindly and mercifully with us. Many times we grievously suffer on earth, and not always are our prayers answered. Where do we fail to grasp the meaning of your teaching?”

142:7.17 (1605.2) Jesus replied: “Thomas, Thomas, how long before you will acquire the ability to listen with the ear of the spirit? How long will it be before you discern that this kingdom is a spiritual kingdom, and that my Father is also a spiritual being? Do you not understand that I am teaching you as spiritual children in the spirit family of heaven, of which the fatherhead is an infinite and eternal spirit? Will you not allow me to use the earth family as an illustration of divine relationships without so literally applying my teaching to material affairs? In your minds cannot you separate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from the materi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age? When I speak the language of the spirit, why do you insist on translating my meaning into the language of the flesh just because I presume to employ commonplace and literal relationships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My children, I implore that you cease to apply the teaching of the kingdom of the spirit to the sordid affairs of slavery, poverty, houses, and lands, and to the material problems of human equity and justice. These temporal matters are the concern of the men of this world, and while in a way they affect all men, you have been called

신 **아버지**의 특별한 대리인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이제는 영의 천국에서 성인{成人}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을 대하듯이 말해야 한단 말이나? 너희가 영적 감지력을 갖고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육신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때에도, 내 영은 너희보다 먼저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8. 남부 유대지방에서

4월 말쯤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예수**에 대한 반대가 너무 뚜렷해져서, **주님**과 사도들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일하러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5월 한 달 전부를, 이 도시들과 인근 마을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면서 보냈다. 이 여행 중에는 아무런 공중 전도를 하지 않았고, 다만 집집마다 방문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는 동안, **예수**와 **아브넬**은, **나실인**의 거류지를 방문하면서 이 기간 가운데 얼마간을 **엔게디**에서 지냈다. **세레 요한**은 이곳 출신이었고 **아브넬**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나실인** 동우회에서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금욕적이고 괴벽스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께서 금식 및 다른 형태의 금욕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그들은 **주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항상 추측했지만, 열두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남부 **유대지방**에 머문 이 기간은, 수고한 결실을 얻고 휴식을 취한 시절이었으며; 많은 혼이 천국으로 들어왔다. 6월 초가 되자, **예수**에 대한 동요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주님**과 사도들은 신자를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돌아갔다.

비록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6월 전부를 보냈더라도, 그들은 이 기간에 아무런 공개적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에 **겟세마네**라고 알려진 그늘진 공원, 즉 동산에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날을 지냈다. 이 공원은 **기드론** 시냇물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감람산** 서쪽 비탈에 있었다. 그들은 **안식일**인 주말에는 대개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관심 있는 여러 탐구자가 **겟세마네**로 나와서 그를 방문했다. 어느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만나러 왔으나, **주님**의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두려워서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even as I represent my Father. You are spiritual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spirit Father. By this time it should be possible for me to instruct you as full-grown men of the spirit kingdom. Must I ever address you only as children? Will you never grow up in spirit perception? Nevertheless, I love you and will bear with you, even to the very end of our association in the flesh. And even then shall my spirit go before you into all the world.”

8. IN SOUTHERN JUDEA

142:8.1 (1605.3) By the end of April the opposition to Jesus among the Pharisees and Sadducees had become so pronounced that the Master and his apostles decided to leave Jerusalem for a while, going south to work in Bethlehem and Hebron. The entire month of May was spent in doing personal work in these cities and among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villages. No public preaching was done on this trip, only house-to-house visitation. A part of this time, while the apostles taught the gospel and ministered to the sick, Jesus and Abner spent at Engedi, visiting the Nazarite colony. John the Baptist had gone forth from this place, and Abner had been head of this group. Many of the Nazarite brotherhood became believers in Jesus, but the majority of these ascetic and eccentric men refused to accept him as a teacher sent from heaven because he did not teach fasting and other forms of self-denial.

142:8.2 (1605.4) The people living in this region did not know that Jesus had been born in Bethlehem. They always supposed the Master had been born at Nazareth, as did the vast majority of his disciples, but the twelve knew the facts.

142:8.3 (1605.5) This sojourn in the south of Judea was a restful and fruitful season of labor; many souls were added to the kingdom. By the first days of June the agitation against Jesus had so quieted down in Jerusalem that the Master and the apostles returned to instruct and comfort believers.

142:8.4 (1605.6) Although Jesus and the apostles spent the entire month of June in or near Jerusalem, they did no public teaching during this period. They lived for the most part in tents, which they pitched in a shaded park, or garden, known in that day as Gethsemane. This park was situated on the western slope of the Mount of Olives not far from the brook Kidron. The Sabbath weekends they usually spent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Bethany. Jesus entered within the walls of Jerusalem only a few times, but a large number of interested inquirers came out to Gethsemane to visit with him. One Friday evening Nicodemus and one Joseph of Arimathea ventured out to see

돌아왔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 알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됐을 때, 그를 체포할 준비를 했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대중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지난번 동요로 겁먹었다고 단정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런 사적인 방식으로 계속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6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런 식으로 일이 조용히 진행됐는데, 이때 시몬이라는 산헤드린 회원이 공공연하게 예수의 교훈을 지지했고, 이미 유대인 통치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공표했다. 예수에 대해 우려하는 새로운 동요가 곧 일어났으며, 그것이 너무 강하게 싹틔었으므로, 주님은 사마리아와 데카볼리에 있는 마을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했다.

Jesus but turned back through fear even after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entrance to the Master's tent. And, of course, they did not perceive that Jesus knew all about their doings.

142:8.5 (1605.7) When the rulers of the Jews learned that Jesus had returned to Jerusalem, they prepared to arrest him; but when they observed that he did no public preaching, they concluded that he had become frightened by their previous agitation and decided to allow him to carry on his teaching in this private manner without further molestation. And thus affairs moved along quietly until the last days of June, when one Simon, a member of the Sanhedrin, publicly espoused the teachings of Jesus, after so declaring himself before the rulers of the Jews. Immediately a new agitation for Jesus' apprehension sprang up and grew so strong that the Master decided to retire into the cities of Samaria and the Decapolis.

제 143편. 사마리아를 지나감

⇨ 142

유랜시아 책

144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43편
사마리아를 지나감

섹션

소개

1. 아켈라이에서 전도함
2. 자아_정복에 대한 수업
3. 기분전환과 휴식
4.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5. 수가의 여자
6. 사마리아의 부흥
7. 기도와 경배에 대한 교훈

PAPER 143
GOING THROUGH SAMARIA

SECTIONS

Introduction

1. Preaching at Archelais
2. Lesson on Self-Mastery
3. Diversion and Relaxation
4. The Jews and the Samaritans
5. The Woman of Sychar
6. The Samaritan Revival
7. Teachings about Prayer and Worship

소개

서기 27년 6월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심하게 방해했으므로, **예수**와 열두 사도는 천막과 개인 물건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면서, **벧엘**에서 **안식일**을 지냈다. 그들은 여기서, **굽나**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전도했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를 방문해 달라고 **예수**를 초청했다. **주님**과 사도들은 이 지역에서 2주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 **안티파트리**에서 왔다.

남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가롯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많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유다**가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7월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동역자들은 **요단**에서 가까운 **그리스** 도시 **파새리**와 **아켈라이**로 떠날 준비를 했다.

INTRODUCTION

143:0.1 (1607.1) AT THE end of June, A.D. 27, because of the increasing opposition of the Jewish religious rulers,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Jerusalem, after sending their tents and meager personal effects to be stored at the home of Lazarus at Bethany. Going north into Samaria, they tarried over the Sabbath at Bethel. Here they preached for several days to the people who came from Gophna and Ephraim. A group of citizens from Arimathea and Thamna came over to invite Jesus to visit their villages. The Master and his apostles spent more than two weeks teaching the Jews and Samaritans of this region, many of whom came from as far as Antipatris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143:0.2 (1607.2) The people of southern Samaria heard Jesus gladly, and the apostles, with the exception of Judas Iscariot, succeeded in overcoming much of their prejudice against the Samaritans. It was very difficult for Judas to love these Samaritans. The last week of July Jesus and his associates made ready to depart for the new Greek cities of Phasaelis and Archelais near the Jordan.

1. 아켈라이에서 전도함

8월 전반부에, 사도 일행은 **그리스** 도시 **아켈라이**와 **파사엘리**에 본부를 뒀고, 거기서 거의 이방인만으로--곧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으로--이뤄진 모임을 상대로는 처음 전도하는 체험을 가졌는데, 이 두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로마** 시민과 접촉하면서,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쳤고, **예수**의 교훈에 대한 새로운 반대에 봉착하게 됐다. 사도들과 여러 차례 가졌던 저녁 회담 가운데 하나에서, 열두 사도가 개인적으로 수고해서 얻은 사람들과 겪은 체험담을 되풀이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런 장애물에 대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어려움 중에서 **빌립**의 질문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이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그런 교훈이 오직 약한 자나 노예에게 어울린다면서, 우리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방인의 종교가 강력하고 확고하고 적극적인 성품을 획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약하고 수동적인 비저항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인합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이상적이라고 기꺼이 시인하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사람은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도마, **나다니엘**, **열심당 시몬**, 및 **마태**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비슷한 반대에 대해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품을 전제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형제들아,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한 가지만 이행할 것인데, 내 교훈이 이 시대 또는 다른 세대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에 패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엄격한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경솔한 자식의 현명치 못한 행위를 억제하려고, 아버지에게 종종 강요한다. 아버지의 자제시키는 훈련의 현명함과 사랑의 동기를, 자녀가 반드시 납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낙원**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권능으로 온갖 우주를 지배하신다. 모든 영 실체 중에서 사랑이 최고다.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상의 관계다. 그리고 너희 동료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이 진보하는 궁극

1. PREACHING AT ARCHELAIS

143:1.1 (1607.3) The first half of the month of August the apostolic party made its headquarters at the Greek cities of Archelais and Phasaelis, where they had their first experience preaching to well-nigh exclusive gatherings of gentiles — Greeks, Romans, and Syrians — for few Jews dwelt in these two Greek towns. In contacting with these Roman citizens, the apostles encountered new difficulties in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and they met with new objections to the teachings of Jesus. At one of the many evening conferences with his apostles, Jesus listened attentively to these objection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 twelve repeated their experiences with the subjects of their personal labors.

143:1.2 (1607.4) A question asked by Philip was typical of their difficulties. Said Philip: “Master, these Greeks and Romans make light of our message, saying that such teachings are fit for only weaklings and slaves. They assert that the religion of the heathen is superior to our teaching because it inspires to the acquirement of a strong, robust, and aggressive character. They affirm that we would convert all men into enfeebled specimens of passive nonresisters who would soon perish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ey like you, Master, and freely admit that your teaching is heavenly and ideal, but they will not take us seriously. They assert that your religion is not for this world; that men cannot live as you teach. And now, Master, what shall we say to these gentiles?”

143:1.3 (1607.5) After Jesus had heard similar objection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presented by Thomas, Nathaniel, Simon Zelotes, and Matthew, he said to the twelve:

143:1.4 (1608.1) “I have come into this worl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and to reveal his loving character to all mankind. That, my brethren, is my mission. And this one thing I will do, regardless of the misunderstanding of my teachings by Jews or gentiles of this day or of another generation. But you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even divine love has its severe disciplines. A father’s love for his son oftentimes impels the father to restrain the unwise acts of his thoughtless offspring. The child does not always comprehend the wise and loving motives of the father’s restraining discipline. But I declare to you that my Father in Paradise does rule a universe of universes by the compelling power of his love. Love is the greatest of all spirit realities. Truth is a liberating revelation, but love is the supreme relationship. And no matter what blunders your fellow men make in their world management of today, in an age to come the gospel which I declare to you will rule this very

적 목적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건하게 깨닫는 것과,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사랑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내 복음이 단지 노예와 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느냐? 내가 택한 사도들인 너희가 약한 자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한 자처럼 보였느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봤느냐? 이 세대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 종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회개하고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에,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표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곧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전파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천국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모험이요, 영원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 봉사하려면, 너희와 너희 동업자들이 불리일으킬 수 있는 용감한 남자다움을 전부 요구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천국 복음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육체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戰友} 앞에서 용기를 얻어 죽는 것은 쉽지만, 너희 필사자 마음 속에 간직돼 있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 네 생명을 조용히 혼자 버리는 일에는, 더 높고 더 심오한 형태의 인간적 용기와 헌신이 요구된다.

“오늘날, 너희가 무저항의 복음을 전파하고 비폭력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교훈을 향한 자신의 영웅적 헌신으로 인해 모든 인류를 놀라게 할 사람들, 곧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진지한 신자들의 긴 행렬에서 처음으로 자원한 자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을 전파하게 될, 너희와 너희의 충성스런 계승자들이 제시하는 것 보다 더 큰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 준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육신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감함이다. 정신적 용감함이 더 높은 유형의 인간적 용기이지만, 심오한 영적 실체의 계몽된 신념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충성이, 가장 높고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웅적 자질을 구성한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사람의 아들**의 개인 동역자다.”

이것이 이 경우에 **예수**께서 말씀했던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연설의 서두였고, 그는 계속해서 이 발표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고 예를 들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던 가장 열렬한 강연 가운데 하나였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명

world. The ultimate goal of human progress is the reverent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loving materi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143:1.5 (1608.2) “But who told you that my gospel was intended only for slaves and weaklings? Do you, my chosen apostles, resemble weaklings? Did John look like a weakling? Do you observe that I am enslaved by fear? True, the poor and oppressed of this generation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The religions of this world have neglected the poor, but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Besides, the poor of this day are the first to heed the call to repentance and acceptance of sonship.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to be preached to all men — Jew and gentile, Greek and Roman, rich and poor, free and bond — and equally to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143:1.6 (1608.3) “Because my Father is a God of love and delights in the practice of mercy, do not imbibe the idea that the service of the kingdom is to be one of monotonous ease. The Paradise ascent is the supreme adventure of all time, the rugged achievement of eternity. The service of the kingdom on earth will call for all the courageous manhood that you and your coworkers can muster. Many of you will be put to death for your loyalty to the gospel of this kingdom. It is easy to die in the line of physical battle when your courage is strengthened by the presence of your fighting comrades, but it requires a higher and more profound form of human courage and devotion calmly and all alone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 love of a truth enshrined in your mortal heart.

143:1.7 (1608.4) “Today, the unbelievers may taunt you with preaching a gospel of nonresistance and with living lives of nonviolence, but you are the first volunteers of a long line of sincer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is kingdom who will astonish all mankind by their heroic devotion to these teachings. No armies of the world have ever displayed more courage and bravery than will be portrayed by you and your loyal successors who shall go forth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e good news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The courage of the flesh is the lowest form of bravery. Mind bravery is a higher type of human courage, but the highest and supreme is uncompromising loyalty to the enlightened convictions of profound spiritual realities. And such courage constitutes the heroism of the God-knowing man. And you are all God-knowing men; you are in very truth the personal associates of the Son of Man.”

143:1.8 (1608.5) This was not all that Jesus said on that occasion, but it is the introduction of his address, and he went on at great length in amplification and in illustration of this pronouncement. This was one of the most

백하게 강한 느낌을 갖고 말씀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것은 그가 깊은 감정과 함께 눈에 띄는 열성으로 말씀했던,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사도들의 공중 전도와 개인 사역에서 결과가 즉시 나타났는데; 바로 이날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용기로 지배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열두 사도는 천국의 새로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기쁨을 계속 습득했다. 이날 이후로 계속하여, **주님**의 다채로운 가르침 중에서 부정적 효력과 수동적 금지명령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그렇게 많이 휩쓸리지 않았다.

2. 자아_정복에 대한 수업

주님은 인간의 자아_통제를 완성시킨 표본이었다. 그는 자신이 욕먹을 때에도 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고통당할 때, 자기에게 고통 주는 자에게 아무 위협도 하지 않았으며; 적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에 자신을 맡겼다.

어느 날 저녁 회담에서 **안드레**가 **예수**에게 물었다: “**주님**,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금욕을 실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르침처럼 자아_통제를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까? 당신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다른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요한**은 진실로 선조의 빛과 율법에 의거해서 의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것은 자아_반성과 금욕의 종교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_망각과 자아_통제라는 새 메시지를 갖고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신 대로, 너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성을 뺀 자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크다. 자아_정복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의 척도이며, 그의 영적 발전의 지표(指標)다. 옛 규율에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너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고 기뻐하라고 배운다.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옛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죽음으로부터 영생(永生)으로 옮겨갔음을 세상에 확신시키게 될 것이다.

“옛 방법을 따르면, 참고, 복종하고, 삶의 규정에 순응하기를 너희는 추구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따르면, 먼저 **진리의 영**이 너희를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너희 정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너희 안에 있는 혼을 강건하게 하며, 그리하여 우아하고 마음에 들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기쁘게 실행하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

impassioned addresses which Jesus ever delivered to the twelve. Seldom did the Master speak to his apostles with evident strong feeling, but this was one of those few occasions when he spoke with manifest earnestness, accompanied by marked emotion.

143:1.9 (1609.1) The result upon the public preaching and personal ministry of the apostles was immediate; from that very day their message took on a new note of courageous dominance. The twelve continued to acquire the spirit of positive aggression in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From this day forward they did not occupy themselves so much with the preaching of the negative virtues and the passive injunctions of their Master's many-sided teaching.

2. LESSON ON SELF-MASTERY

143:2.1 (1609.2) The Master was a perfected specimen of human self-control. When he was reviled, he reviled not; when he suffered, he uttered no threats against his tormentors; when he was denounced by his enemies, he simply committed himself to the righteous judgment of the Father in heaven.

143:2.2 (1609.3) At one of the evening conferences, Andrew asked Jesus: “Master, are we to practice self-denial as John taught us, or are we to strive for the self-control of your teaching? Wherein does your teaching differ from that of John?” Jesus answered: “John indeed taught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in accordance with the light and laws of his fathers, and that was the religion of self-examination and self-denial. But I come with a new message of self-forgetfulness and self-control. I show to you the way of life as revealed to me by my Father in heaven.

143:2.3 (1609.4) “Verily, verily, I say to you, he who rules his own self is greater than he who captures a city. Self-mastery is the measure of man's moral nature and the indicator of his spiritual development. In the old order you fasted and prayed; as the new creature of the rebirth of the spirit, you are taught to believe and rejoice. In the Father's kingdom you are to become new creatures; old things are to pass away; behold I show you how all things are to become new. And by your love for one another you are to convince the world that you have passed from bondage to liberty, from death into life everlasting.

143:2.4 (1609.5) “By the old way you seek to suppress, obey, and conform to the rules of living; by the new way you are first transformed by the Spirit of Truth and thereby strengthened in your inner soul by the constant spiritual renewing of your mind, and so are you endowed with the power of the certain and joyous performance of

다. 잊지 마라--**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에 대한 너의 개인 신앙이, 네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보증한다. 그렇게 해서 너는, 네 신앙으로 인해, 그리고 네 영이 바뀔므로 인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이 실제로 네 안에 거하신다. 영이 네 안에 거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자녀다. 영의 새로운 법이, 자아를 속박하는 두려움과 금욕의 노예 신분이라는 옛 율법 대신, 자아_정복으로 말미암는 해방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너희 행동을 악한 세력의 영향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실제로는 너희 자신의 선천적 경향들로 인해 길을 잃었을 뿐이다. 오래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에게,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기만적이고 지독하게 사악하기까지 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아_기만에 빠지고 그리하여 어리석은 두려움, 여러 가지 욕망, 쾌락에 사로잡힘, 악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스스로_의로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영(靈)이 갱생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두려움과 육신의 금욕이 아니라,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은혜로 교제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는, 늘 언제나 육신의 욕망에 속하는 모든 것과 자아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 진보하는 자녀로서, 영원히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게 돼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완전성을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정신과 육체의 모든 악을 쫓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고귀한 특권이다.

“너희의 아들신분은 신앙에 근거하며, 너희는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기쁨은 신성한 말씀을 신뢰함에서 나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실체를 의심하도록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참되고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자아를 정복하는 비결은 내주하는 영에 대한 너희의 신앙에 달려 있는데, 그 영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한다. 구원하는 이 신앙조차, 너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라면, 너희는 더 이상 자아에 묶인_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한 주인이요, **하나님**의 해방된 자녀다.

“애들아,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면, 금욕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경계하는 생활을 자아_의식하여 속박되는 처지에서 영원히 구출되고, 즐거운 영의 나라로 옮겨지고,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영의 열매는, 즐길만하고 고상하게 하는 자아_통제 중에서 가

the gracious,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Forget not — it is your personal faith in the exceedingl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of God that ensures your becoming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us by your faith and the spirit's transformation, you become in reality the temples of God, and his spirit actually dwells within you. If, then, the spirit dwells within you, you are no longer bondslaves of the flesh but free and liberated sons of the spirit. The new law of the spirit endows you with the liberty of self-mastery in place of the old law of the fear of self-bondage and the slavery of self-denial.

143:25 (1609.6) “Many times, when you have done evil, you have thought to charge up your acts to the influence of the evil one when in reality you have but been led astray by your own natural tendencies. Did not the Prophet Jeremiah long ago tell you that the human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sometimes even desperately wicked? How easy for you to become self-deceived and thereby fall into foolish fears, divers lusts, enslaving pleasures, malice, envy, and even vengeful hatred!

143:26 (1610.1) “Salvation is by the regeneration of the spirit and not by the self-righteous deeds of the flesh. You are justified by faith and fellowshipped by grace, not by fear and the self-denial of the flesh, albeit the Father's children who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are ever and always masters of the self and all that pertains to the desires of the flesh. When you know that you are saved by faith, you have real peace with God. And all who follow in the way of this heavenly peace are destined to be sanctified to the eternal service of the ever-advancing sons of the eternal God. Henceforth, it is not a duty but rather your exalted privilege to cleanse yourselves from all evils of mind and body while you seek for perfection in the love of God.

143:27 (1610.2) “Your sonship is grounded in faith, and you are to remain unmoved by fear. Your joy is born of trust in the divine word, and you shall not therefore be led to doubt the reality of the Father's love and mercy. It is the very goodness of God that leads men into true and genuine repentance. Your secret of the mastery of self is bound up with your faith in the indwelling spirit, which ever works by love. Even this saving faith you have not of yourselves; it also is the gift of God. And if you are the children of this living faith, you are no longer the bondslaves of self but rather the triumphant masters of yourselves, the liberated sons of God.

143:28 (1610.3) “If, then, my children, you are born of the spirit, you are forever delivered from the self-conscious bondage of a life of self-denial and watchcare over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you are translated into the joyous kingdom of the spirit, whence you spontaneously show forth the fruits of

장 높은 유형의 핵심,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필사가가 도달하는 최고봉이다--곧 진정한 자아_정복이다.”

3. 기분전환과 휴식

이 무렵에, 신경과민과 감정적 긴장 상태가, 사도들 및 그 직속 제자인 동역자들 가운데 발생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에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방인 및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 외에도, 최근의 **예수**의 발언이 그들의 어지러운 정신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안드레**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자신의 문제와 난처한 일을 **주님**께 가져갔다.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그들이 그런 분규에 그렇게 연루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의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과 그 일을 논의할 수 없다. 나는 네가 요청한 일을 할 수 없지만--곧 나는 이런 개인적인 사교상 분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3일간의 휴식과 기분 전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 나와 함께 **사르타바 산**으로 올라가 자고 전해라, 거기서 나는 하루나 이틀 쉬기 원한다.

“지금 가서 11명의 형제 각자에게 사적(私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님**이 휴식을 취하고 쉬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잠시 떠나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심령을 많이 괴롭히고 정신의 압박감을 체험했으므로, 이 휴가 동안에는, 우리 시련과 걱정거리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문제에 네가 협조할 것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형제들 각자에게 접근하라.” 그리고 **안드레**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

이것은 그들 각자의 체험에서 놀라운 기회였으며; 그들은 산에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전체 여행 기간에, 그들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 주위에 앉히고 말씀했다: “형제들아, 휴식의 소중함과 기분전환의 효능에 대해 너희 모두 알아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그것을 잠시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휴식이나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신선한 상태로 돌아가면, 너희는 더 단호한 마음은 물론이고, 더 분명해진 머리와 안정된 손으로, 너희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너희가 심신(心身)을 쉬게 하는 동안에 그 문제의 크기와 비중이 매우 줄어든 것을 여러 번 발견할 것이다.”

the spirit in your daily lives; and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the essence of the highest type of enjoyable and ennobling self-control, even the heights of terrestrial mortal attainment — true self-mastery.”

3. DIVERSION AND RELAXATION

143:3.1 (1610.4) About this time a state of great nervous and emotional tension developed among the apostles and their immediate disciple associates. They had hardly become accustomed to living and working together. They were experiencing increasing difficulties in 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 with John's disciples. The contact with the gentiles and the Samaritans was a great trial to these Jews. And besides all this, the recent utterances of Jesus had augmented their disturbed state of mind. Andrew was almost beside himself; he did not know what next to do, and so he went to the Master with his problems and perplexities.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e apostolic chief relate his troubles, he said: “Andrew, you cannot talk men out of their perplexities when they reach such a stage of involvement, and when so many persons with strong feelings are concerned. I cannot do what you ask of me — I will not participate in these personal social difficulties — but I will join you in the enjoyment of a three-day period of rest and relaxation. Go to your brethren and announce that all of you are to go with me up on Mount Sartaba, where I desire to rest for a day or two.

143:3.2 (1610.5) “Now you should go to each of your eleven brethren and talk with him privately, saying: ‘The Master desires that we go apart with him for a season to rest and relax. Since we all have recently experienced much vexation of spirit and stress of mind, I suggest that no mention be made of our trials and troubles while on this holiday. Can I depend upon you to co-operate with me in this matter?’ In this way privately and personally approach each of your brethren.” And Andrew did as the Master had instructed him.

143:3.3 (1611.1) This was a marvelous occasion in the experience of each of them; they never forgot the day going up the mountain. Throughout the entire trip hardly a word was said about their troubles. Upon reaching the top of the mountain, Jesus seated them about him while he said: “My brethren, you must all learn the value of rest and the efficacy of relaxation. You must realize that the best method of solving some entangled problems is to forsake them for a time. Then when you go back fresh from your rest or worship, you are able to attack your troubles with a clearer head and a steadier hand, not to mention a more resolute heart. Again, many times your problem is found to have shrunk in size and proportions while you

예수께서는 다음 날 열두 사도 각자에게 토의 할 제목을 나눠줬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종교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문제를 토의하면서 그날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리 내어-- 감사드리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그런 형식을 무시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안드레**의 머리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마음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감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야고보**의 혼은 비통하게 어수선했다. 이방인 가운데 머물고 있었으므로, **마태**는 기금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베드로**는 과로했고, 최근에는 보통 때보다 더 번덕이 심했다. **유다**는 주기적 신경과민과 이기심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시몬**은 자신의 애국심과, 사람을 형제관계로 사랑하는 것을 절충하려고 애쓰면서, 보통 이상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빌립**은 일이 진행돼 나가는 방식에 점점 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다니엘**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된 이래 유머가 줄었고, **도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쌍둥이 형제만이 정상이었고 평온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떻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들 모두 매우 난처했다.

셋째 날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야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적인 많은 난처한 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힘든 걱정거리가 과장된 두려움의 결과이고, 우려가 확대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중대한 발견을 했다. 그들은 그런 모든 난처한 일은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배웠으며; 그런 문제들에서 떠나감으로써 그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뒀다.

이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 그들과 **요한**의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상적 삶의 의무에서 떠나 3일간 휴가를 가진 결과로, 열두 사도 가운데 다수는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가 바뀐 것을 봤고, 신경과민에서 해방됨을 알게 되자 진정으로 기뻐했다. 인간의 접촉이 단조로울 때, 분규를 크게 부풀리고 어려움을 확대시키는 위험이 항상 있다.

아켈라이와 **파새리**라는 두 **그리스** 도시에서는 별로 많지 않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됐지만, 열두 사도는 순전히 이방인만 상대로 해서는 처음 일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했다. 그 달 중순경 어느 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은 **아굽**의 우물 근처 **수기**라는 성읍을 향해 즉시 떠났다.

have been resting your mind and body.”

143:3.4 (1611.2) The next day Jesus assigned to each of the twelve a topic for discussion. The whole day was devoted to reminiscences and to talking over matters not related to their religious work. They were momentarily shocked when Jesus even neglected to give thanks — verbally — when he broke bread for their noontide lunch. This was the first time they had ever observed him to neglect such formalities.

143:3.5 (1611.3) When they went up the mountain, Andrew's head was full of problems. John was inordinately perplexed in his heart. James was grievously troubled in his soul. Matthew was hard pressed for funds inasmuch as they had been sojourning among the gentiles. Peter was overwrought and had recently been more temperamental than usual. Judas was suffering from a periodic attack of sensitiveness and selfishness. Simon was unusually upset in his efforts to reconcile his patriotism with the love of the brotherhood of man. Philip was more and more nonplused by the way things were going. Nathaniel had been less humorous since they had come in contact with the gentile populations, and Thomas was in the midst of a severe season of depression. Only the twins were normal and unperturbed. All of them were exceedingly perplexed about how to get along peaceably with John's disciples.

143:3.6 (1611.4) The third day when they started down the mountain and back to their camp, a great change had come over them. They had made the important discovery that many human perplexities are in reality nonexistent, that many pressing troubles are the creations of exaggerated fear and the offspring of augmented apprehension. They had learned that all such perplexities are best handled by being forsaken; by going off they had left such problems to solve themselves.

143:3.7 (1611.5) Their return from this holiday marked the beginning of a period of greatly improved relations with the followers of John. Many of the twelve really gave way to mirth when they noted the changed state of everybody's mind and observed the freedom from nervous irritability which had come to them as a result of their three days' vacation from the routine duties of life. There is always danger that monotony of human contact will greatly multiply perplexities and magnify difficulties.

143:3.8 (1611.6) Not many of the gentiles in the two Greek cities of Archelais and Phasaelis believed in the gospel, but the twelve apostles gained a valuable experience in this their first extensive work with exclusively gentile populations. On a Monday morning, about the middle of the month, Jesus said to Andrew: “We go into Samaria.” And they set out at once for the city of Sychar, near

Jacob's well.

4.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600년이 넘도록, **유대지방의 유대인**이,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유대인** 역시, **사마리아인**과 반목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악감정은 이렇게 연유했다: 기원전 700년경에, **앗수르 왕 사르곤**이 중부{中部}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 그 자리를 거의 비슷한 숫자의 **큐타이트**, **세파바이트**, 및 **하마타이트** 후손으로 채웠다. 더 나아가 그 뒤에는, **아쉬르바니팔**이 다른 거류민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적개심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는 날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막으려고 했다. 나중에 그들은, **알렉산더**의 군대를 호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대인**을 화나게 했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우호에 보답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많은 부분을 본떠서, **야훼**와 자기 부족 신들에게 경배 드렸고 제물을 바쳤다. 적어도 그들은 **마카비** 시대까지도 이 경배를 계속했는데,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인**을 위해 일하면서 이 옛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정은 유서 깊고 역사적이었으며; 그들은 **알렉산더** 시절 이후로, 서로를 점점 더 상대하지 않았다. 열두 사도는, **그리스** 또는 다른 이방 도시인 **데가볼리나** **시리아**에서 전도하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엄중히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 년 넘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일종의 개인적 충성심을 키웠는데, 이것은 그의 교훈을 믿는 신앙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뛰어넘었다.

5. 수가의 여자

주님과 열두 사도가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음식물과 천막을 **수가**에서 가져오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빌립**이 다른 사도들을 데리고 간 동안,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이 근처에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와 함께 남아 있으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4. THE JEWS AND THE SAMARITANS

143:4.1 (1612.1) For more than six hundred years the Jews of Judea, and later on those of Galilee also, had been at enmity with the Samaritans. This ill feeling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came about in this way: About seven hundred years B.C., Sargon, king of Assyria, in subduing a revolt in central Palestine, carried away and into captivity over twenty-five thousand Jews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installed in their place an almost equal number of the descendants of the Cuthites, Sepharvites, and the Hamathites. Later on, Ashurbanipal sent still other colonies to dwell in Samaria.

143:4.2 (1612.2) The religious enmity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dated from the return of the former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when the Samaritans worked to prevent the rebuilding of Jerusalem. Later they offended the Jews by extending friendly assistance to the armies of Alexander. In return for their friendship Alexander gave the Samaritans permission to build a temple on Mount Gerizim, where they worshiped Yahweh and their tribal gods and offered sacrifices much after the order of the temple services at Jerusalem. At least they continued this worship up to the time of the Maccabees, when John Hyrcanus destroyed their temple on Mount Gerizim. The Apostle Philip, in his labors for the Samaritans after the death of Jesus, held many meetings on the site of this old Samaritan temple.

143:4.3 (1612.3) The antagonisms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were time-honored and historic; increasingly since the days of Alexander they had had no dealings with each other. The twelve apostles were not averse to preaching in the Greek and other gentile cities of the Decapolis and Syria, but it was a severe test of their loyalty to the Master when he said, "Let us go into Samaria." But in the year and more they had been with Jesus, they had developed a form of personal loyalty which transcended even their faith in his teachings and their prejudices against the Samaritans.

5. THE WOMAN OF SYCHAR

143:5.1 (1612.4) When the Master and the twelve arrived at Jacob's well, Jesus, being weary from the journey, tarried by the well while Philip took the apostles with him to assist in bringing food and tents from Sychar, for they were disposed to stay in this vicinity for a while. Peter and the Zebedee sons would have remained with Jesus, but he requested that they go with their brethren, saying: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권했다.“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 **사마리아인**은 친절할 것이며, 우리 형제 **유대인**만이 우리를 해치려고 꾀한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때는, 이 여름철 저녁 거의 여섯 시쯤이었다.

야곱의 우물은 **수가**의 우물들보다 광물질이 적었으므로, 식수로 매우 소중히 여겨졌다. **예수**께서는 목이 말랐으나, 우물에서 물을 뜰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수가**의 한 여자가 물동이와 함께 물을 길어 올릴 준비를 하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모습과 복장을 보고 그가 **유대인**임을 알았으며, 그의 억양에서 **갈릴리 유대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날다**였고, 미모의 여자였다. 그 여자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면서 물을 청하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당시에 자존감 있는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온당히 여겨지지 않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욱 그랬다. 따라서 **날다**가 **예수**께 물었다.“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네가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너는 내게 생수{生水}한 모금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그러나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길어 올리는 데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원기 회복의 우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이제부터는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토록 훌륭한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날다는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 여자는 **주님**의 얼굴에서 고결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친절함을 상투적인 치근덕거림으로 오해했고, 그의 말투를 자기에게 접근하려는 태도로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도덕적으로 방종한 여자였으므로, 공공연하게 유혹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찾아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씀했다. 이 명령이 **날다**의 정신을 차리게 했다. 자신이 **주님**의 친절을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으며; 그의 말투를 오해했음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깜짝 놀랐으며; 자신이 어떤 비범한 사람 앞에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적당한 대답을 마음 속에서 찾지 못하여 크게 당황하면서 말했다.“나는 남편이

“Have no fear for me; these Samaritans will be friendly; only our brethren, the Jews, seek to harm us.” And it was almost six o'clock on this summer's evening when Jesus sat down by the well to await the return of the apostles.

143:5.2 (1612.5) The water of Jacob's well was less mineral than that from the wells of Sychar and was therefore much valued for drinking purposes. Jesus was thirsty, but there was no way of getting water from the well. When, therefore, a woman of Sychar came up with her water pitcher and prepared to draw from the well,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This woman of Samaria knew Jesus was a Jew by his appearance and dress, and she surmised that he was a Galilean Jew from his accent. Her name was Nalda and she was a comely creature. She was much surprised to have a Jewish man thus speak to her at the well and ask for water, for it was not deemed proper in those days for a self-respecting man to speak to a woman in public, much less for a Jew to converse with a Samaritan. Therefore Nalda asked Jesus, “How is it that you, being a Jew, ask for a drink of me, a Samaritan woman?” Jesus answered: “I have indeed asked you for a drink, but if you could only understand, you would ask me for a draught of the living water.” Then said Nalda: “But, Sir,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nce, then, have you this living water?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is well, and who drank thereof himself and his sons and his cattle also?”

143:5.3 (1613.1) Jesus replied: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s of the water of the living spirit shall never thirst. And this living water shall become in him a well of refreshment springing up even to eternal life.” Nalda then said: “Give me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all the way hither to draw. Besides, anything which a Samaritan woman could receive from such a commendable Jew would be a pleasure.”

143:5.4 (1613.2) Nalda did not know how to take Jesus' willingness to talk with her. She beheld in the Master's face the countenance of an upright and holy man, but she mistook friendliness for commonplace familiarity, and she misinterpreted his figure of speech as a form of making advances to her. And being a woman of lax morals, she was minded openly to become flirtatious, when Jesus, looking straight into her eyes, with a commanding voice said, “Woman, go get your husband and bring him hither.” This command brought Nalda to her senses. She saw that she had misjudged the Master's kindness; she perceived that she had misconstrued his manner of speech. She was frightened; she began to realize that she stood in the presence of an unusual person, and groping about in her mind for a suitable reply, in great

없으므로 남편을 불러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한때는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제시했던 생수를 구한다면, 네게 더 좋을 것이다.”

이때 **날다**는 정신이 맑아지고 제 정신이 들었다. 그 여자는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부도덕한 여자가 되지는 않았다. 남편에게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버림받았고, 끔찍한 곤경에 빠져서, 어떤 **그리스인**의 아내가 되어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날다**는 이제 그토록 생각 없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에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꼈고, 아주 뉘우치면서 **주님**께 말했다: “**내 주여**, 당신에게 한 내 말투를 회개하는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 또는 선지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직접 개인적인 도움을 **주님**께 막 구하려는 순간, 이전에 그리고 그 이래로 많은 사람이 행했던 것--곧 신학과 철학적 토론으로 바꿈으로써 개인의 구원 문제를 비켜 가는 것--을 그 여자도 행했다. 그 여자는 대화를 자신의 필요성으로부터 신학 논쟁으로 재빨리 돌렸다. 그 여자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선조는 이 산에서 경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장소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혼이 **창조주**와 직접 연결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 함을 감지했지만, 그의 혼에 좀 더 나은 삶의 길을 알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또한 봤다. 결국, 생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날다**의 마음 속에 있었으므로, 그는 참을성 있게 대하면서 말씀했다: “여자여, 내가 말하겠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드릴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적 신(神)의 종교와 이방인 철학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한다. **유대인**은 적어도 경배 드리는 대상을 알고 있으며;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훼**에게만 경배를 집중시킴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했다. 그러나 진지한 모든 경배자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지금 이 그런 때라고--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어야만 할 것인데,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경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경배 드리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너의 구원은, 다른 자들이 어떻게 혹은 어디서 경배 드리는지를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네게 주는 이 생수를 너 자신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온다.”

그러나 **날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의 처지에 대한 당황스런 질문을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피하려 했다. 다시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 질문했다: “**예**, 선생님,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구원주**라고

confusion, she said, “But, Sir, I cannot call my husband, for I have no husband.” Then said Jesus: “You have spoken the truth, for, while you may have once had a husband, he with whom you are now living is not your husband. Better it would be if you would cease to trifle with my words and seek for the living water which I have this day offered you.”

143:5.5 (1613.3) By this time Nalda was sobered, and her better self was awakened. She was not an immoral woman wholly by choice. She had been ruthlessly and unjustly cast aside by her husband and in dire straits had consented to live with a certain Greek as his wife, but without marriage. Nalda now felt greatly ashamed that she had so unthinkingly spoken to Jesus, and she most penitently addressed the Master, saying: “My Lord, I repent of my manner of speaking to you, for I perceive that you are a holy man or maybe a prophet.” And she was just about to seek direct and personal help from the Master when she did what so many have done before and since — dodged the issue of personal salvation by turning to the discussion of theology and philosophy. She quickly turned the conversation from her own needs to a theological controversy. Pointing over to Mount Gerizim, she continued: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and yet *you* would say that in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men ought to worship; which, then, is the right place to worship God?”

143:5.6 (1613.4) Jesus perceived the attempt of the woman's soul to avoid direct and searching contact with its Maker, but he also saw that there was present in her soul a desire to know the better way of life. After all, there was in Nalda's heart a true thirst for the living water; therefore he dealt patiently with her, saying: “Woman, let me say to you that the day is soon coming when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will you worship the Father. But now you worship that which you know not, a mixture of the religion of many pagan gods and gentile philosophies. The Jews at least know whom they worship; they have removed all confusion by concentrating their worship upon one God, Yahweh. But you should believe me when I say that the hour will soon come — even now is — when all sincer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it is just such worshi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they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Your salvation comes not from knowing how others should worship or where but by receiving into your own heart this living water which I am offering you even now.”

143:5.7 (1614.1) But Nalda would make one more effort to avoid the discussion of the embarrassing question of her personal life on earth and the status of her soul before God. Once more she resorted to questions of general religion, saying:

칭할 것이라는 **요한**의 설교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그러자 **예수**께서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씀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세상에 이미 설립한 아들신분에 대해 발표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이고 숨김없는 선언이었으며; 그것도 한 여자, 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런 성품의 여자에게 선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신성한 눈으로 볼 때, 그 여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죄짓는 것보다 더 많이 죄에 빠졌으며, 지금은 구원을 바라고 그것을 진지하게 전심으로 원하는 인간 혼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날다가 더 나은 것들과 더 고상한 삶의 방법에 대한 진실하고 개인적인 갈망을 말하려고 할 때, 즉 마음 속의 진정한 소망을 말할 준비가 됐을 때, 열두 사도가 **수가**에서 돌아왔으며, **예수**께서 이 여자와--곧 이 **사마리아** 여자와 단 둘이서-- 친근하게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물건을 재빨리 내려놓고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는 못한 채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께서 **날다**에게 말씀했다: “여자여, 네 길을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도록 해라. 네가 생수를 받았으니, 새로운 기쁨이 네 혼 속에서 솟아오를 것이며, 너는 **지고자**의 딸이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사도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도망갔다.

그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아굽**의 우물로 빨리 가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개종시키는 분** 아니겠습니까?” 해 지기 전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아굽**의 우물에 모였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생수, 곧 내주하는 영의 선물에 대해 더 말씀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여자들과, 그것도 미심쩍은 성품의 여자들, 심지어 부도덕한 여자들과도 기꺼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계속 충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여자들, 즉 소위 부도덕한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삶을 위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19세기 이후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교훈을 파악하기를 꺼려하는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리스도** 교조차, 그의 생애라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확립돼 왔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슬픈 죽음보다, 그의 행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에 더 관심 있어야 했다.

날다는 다음 날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

“Yes, I know, Sir, that John has preached about the coming of the Converter, he who will be called the Deliverer, and that, when he shall come, he will declare to us all things” — and Jesus, interrupting Nalda, said with startling assurance, “I who speak to you am he.”

143:5.8 (1614.2) This was the first direct, positive, and undisguised pronouncement of his divine nature and sonship which Jesus had made on earth; and it was made to a woman, a Samaritan woman, and a woman of questionable character in the eyes of men up to this moment, but a woman whom the divine eye beheld as having been sinned against more than as sinning of her own desire and as now being a human soul who desired salvation, desired it sincerely and wholeheartedly, and that was enough.

143:5.9 (1614.3) As Nalda was about to voice her real and personal longing for better things and a more noble way of living, just as she was ready to speak the real desire of her heart, the twelve apostles returned from Sychar, and coming upon this scene of Jesus' talking so intimately with this woman — this Samaritan woman, and alone — they were more than astonished. They quickly deposited their supplies and drew aside, no man daring to reprove him, while Jesus said to Nalda: “Woman, go your way; God has forgiven you. Henceforth you will live a new life. You have received the living water, and a new joy will spring up within your soul, and you shall become a daughter of the Most High.” And the woman, perceiving the disapproval of the apostles, left her waterpot and fled to the city.

143:5.10 (1614.4) As she entered the city, she proclaimed to everyone she met: “Go out to Jacob's well and go quickly, for there you will see a man who told me all I ever did. Can this be the Converter?” And ere the sun went down, a great crowd had assembled at Jacob's well to hear Jesus. And the Master talked to them more about the water of life, the gift of the indwelling spirit.

143:5.11 (1614.5) The apostles never ceased to be shocked by Jesus' willingness to talk with women, women of questionable character, even immoral women. It was very difficult for Jesus to teach his apostles that women, even so-called immoral women, have souls which can choose God as their Father, thereby becoming daughters of God and candidates for life everlasting. Even nineteen centuries later many show the same unwillingness to grasp the Master's teachings. Even the Christian religion has been persistently built up around the fact of the death of Christ instead of around the truth of his life. The world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his happy and God-revealing life than with his tragic and sorrowful death.

143:5.12 (1614.6) Nalda told this entire story to the

한에게 말했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았고, 예수께서도 열두 사도에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날다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가 일찍이 행한 모든 것”을 말씀했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은 날다와 나눈 이 교제에 대해 예수께 여러 번 물어보려고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 자신에 대해 한 가지 사실만 말씀했지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정신 속에는 자신의 변화무쌍한 인생이 잠시 주마등처럼 떠올랐는데, 자신의 과거 인생에 대한 이런 자기_계시를, 주님의 표정과 말씀에 관련시켰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린 이래 네 명의 다른 남자와 동거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과거와 함께 이것이 정신 속에 선명하게 나타났으므로, 나중에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모든 행적을 정말로 말씀했다고 요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6. 사마리아의 부흥

예수를 만나라고, 날다가 무리를 수가에서 이끌어내던 그 저녁에, 열두 사도가 음식을 가지고 막 돌아 왔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굶어 시장했으므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대신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어두워질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다. 무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좀 드시라고 안드레가 설득하려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도들은 이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여자가 마실 것뿐 아니라 음식도 드렸는가?” 예수께서는 그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열두 사도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까지 이러 저러한 시간이 남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 도시에서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라;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밭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수확하는 자는 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그 결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려 한다.” 그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전도에 관련시켜서 말했다.

예수와 사도들은 수가로 들어갔고, **그리심산**에 야영지를 세우기 전까지 이를 동안 전도했다. 수가의 거주민 가운데 다수가 복음을 믿었고 세례받기를 원했으나, 예수의 사도들은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

Apostle John the next day, but he never revealed it fully to the other apostles, and Jesus did not speak of it in detail to the twelve.

143:5.13 (1615.1) Nalda told John that Jesus had told her “all I ever did.” John many times wanted to ask Jesus about this visit with Nalda, but he never did. Jesus told her only one thing about herself, but his look into her eyes and the manner of his dealing with her had so brought all of her checkered life in panoramic review before her mind in a moment of time that she associated all of this self-revelation of her past life with the look and the word of the Master. Jesus never told her she had had five husbands. She had lived with four different men since her husband cast her aside, and this, with all her past, came up so vividly in her mind at the moment when she realized Jesus was a man of God that she subsequently repeated to John that Jesus had really told her all about herself.

6. THE SAMARITAN REVIVAL

143:6.1 (1615.2) On the evening that Nalda drew the crowd out from Sychar to see Jesus, the twelve had just returned with food, and they besought Jesus to eat with them instead of talking to the people, for they had been without food all day and were hungry. But Jesus knew that darkness would soon be upon them; so he persisted in his determination to talk to the people before he sent them away. When Andrew sought to persuade him to eat a bite before speaking to the crowd, Jesus said, “I have meat to eat that you do not know about.” When the apostles heard this, they said among themselves: “Has any man brought him aught to eat? Can it be that the woman gave him food as well as drink?” When Jesus heard them talking among themselves, before he spoke to the people, he turned aside and said to the twelve: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You should no longer say it is such and such a time until the harvest. Behold these people coming out from a Samaritan city to hear us; I tell you the fields are already white for the harvest. He who reaps receives wages and gathers this fruit to eternal life; consequently the sowers and the reapers rejoice together. For herein is the saying true: ‘One sows and another reaps.’ I am now sending you to reap that whereon you have not labored; others have labored, and you are about to enter into their labor.” This he said in reference to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143:6.2 (1615.3) Jesus and the apostles went into Sychar and preached two days before they established their camp on Mount Gerizim. And many of the dwellers in Sychar believed the gospel and made request for baptism, but the apostles of

그리심산에서 야영하던 첫 날 밤에, 사도들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예수**께서 꾸중하리라고 예상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 되는 실체들”에 대해,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그들에게 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내버려두고, 사람의 신학에서 진리 대신에 사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기가 매우 쉽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중의 **그리스도교**에서 바로 그 핵심을 이루게 됐지만,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서 연유된만한 종교의 중심 진리는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이랬다: 그는 자기(곧 **예수**)가 형제이자_친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이자_친구로 여기기 원했다. 이 신성한 관계들을 주목하라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진리임과 똑같이, 사랑이 세상에서--곧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관계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마리아인**에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이었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사마리아** 중심부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8월말까지 **그리심산**에서 야영했다. 그들은 낮에는 도시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전파했고 밤에는 야영지에서 지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읍들에서 한 일은, 많은 혼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후,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에게 대한 비참한 처형이 일어남으로써 사도들이 나중에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뒤에, 이 지역에서 **빌립**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도록 길을 예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Jesus did not yet baptize.

143:6.3 (1615.4) The first night of the camp on Mount Gerizim the apostles expected that Jesus would rebuke them for their attitude toward the woman at Jacob's well, but he made no reference to the matter. Instead he gave them that memorable talk on “The realities which are central in the kingdom of God.” In any religion it is very easy to allow values to become disproportionate and to permit facts to occupy the place of truth in one's theology. The fact of the cross became the very center of subsequent Christianity; but it is not the central truth of the religion which may be derived from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143:6.4 (1615.5) The theme of Jesus' teaching on Mount Gerizim was: That he wants all men to see God as a Father-friend just as he (Jesus) is a brother-friend. And again and again he impressed upon them that love is the greatest relationship in the world — in the universe — just as truth is the greatest pronouncement of the observation of these divine relationships.

143:6.5 (1616.1) Jesus declared himself so fully to the Samaritans because he could safely do so, and because he knew that he would not again visit the heart of Samaria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143:6.6 (1616.2) Jesus and the twelve camped on Mount Gerizim until the end of August. They preach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 the fatherhood of God — to the Samaritans in the cities by day and spent the nights at the camp. The work which Jesus and the twelve did in these Samaritan cities yielded many souls for the kingdom and did much to prepare the way for the marvelous work of Philip in these regions after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subsequent to the dispersion of the apostles to the ends of the earth by the bitter persecution of believers at Jerusalem.

7. 기도와 경배에 대한 교훈

예수께서는 **그리심산**의 저녁 회담들에서 많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쳤는데,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참 종교는, **창조주**와 자아_의식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개별 혼(魂)의 행동이며; 조직된 종교는, 개별 종교인들의 경배를 **사회화**시키려는, 사람의 시도다.

경배는--곧 영적 세계에 대한 묵상은-- 물질 실체와 접촉하는 봉사와 번갈아 이뤄져야 한다. 일과 오락을 번갈아 해야 하며;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심오한 철학은 운율 있는 시로 완화돼야 한다. 삶의 긴장--곧 시간 속에서 인격이 느끼는 긴장감--은 경배가 주는 휴식으로

7. TEACHINGS ABOUT PRAYER AND WORSHIP

143:7.1 (1616.3) At the evening conferences on Mount Gerizim, Jesus taught many great truths, and in particular he laid emphasis on the following:

143:7.2 (1616.4) True religion is the act of an individual soul in its self-conscious relations with the Creator; organized religion is man's attempt to *socialize* the worship of individual religionists.

143:7.3 (1616.5) Worship —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 must alternate with service, contact with material reality. Work should alternate with play; religion should be balanced by humor. Profound philosophy should be relieved by rhythmic poetry. The strain of living — the time

풀어야 할 것이다. 우주에서 인격이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불안감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지존자**에 대한 시도된 깨달음으로 해독{解毒}돼야 할 것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생각을 덜 하게 하는 반면, 더 깨닫도록 고안했으며; 지식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찰력을 확장하도록 고안됐다.

경배는 앞날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도록,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새로운 영적 의미를 현재 상태의 삶에 반영하도록 의도됐다. 기도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경배는 신성하게 창조적이다.

경배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분**에게 주목하는 기법이다. 경배는, 물질 우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정도와, 혼이 모든 창조물의 영적 실체들에게 동시적이고 완전하게 소속된 정도를 채는 척도다.

기도는 자아를 일깨우며--곧 탁월한 사고이며; 경배는 자아를 잊게 한다--곧 초월적 사고{思考}다. 경배는 힘들지 않는 집중이며, 참되고 이상적인 혼의 휴식이며, 편안함을 주는 일종의 영적 노력이다.

경배는, 한 부분이 **전체**와; 유한자가 **무한자**와; 자녀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행위이며; 시간이 영원과 발걸음을 맞추는 행위다. 경배는, 자녀가 신성한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행위요, 인간의 혼과 영이, 신선한, 창조적인, 우에 있는, 그리고 열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야영지에서 그의 교훈 가운데 몇 가지밖에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계들은 그의 교훈을 파악했고, 이 세상의 다른 세대들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tension of personality — should be relaxed by the restfulness of worship. The feelings of insecurity arising from the fear of personality isolation in the universe should be antidoted by the faith contemplation of the Father and by the attemp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143:7.4 (1616.6) Prayer is designed to make man less thinking but more *realizing*; it is not designed to increase knowledge but rather to expand insight.

143:7.5 (1616.7) Worship is intended to anticipate the better life ahead and then to reflect these new spiritual significances back onto the life which now is. Prayer is spiritually sustaining, but worship is divinely creative.

143:7.6 (1616.8) Worship is the technique of looking to the *One* for the inspiration of service to the *many*. Worship is the yardstick which measures the extent of the soul's detachment from the material universe and its simultaneous and secure attachment to the spiritual realities of all creation.

143:7.7 (1616.9) Prayer is self-reminding — sublime thinking; worship is self-forgetting — superthinking. Worship is effortless attention, true and ideal soul rest, a form of restful spiritual exertion.

143:7.8 (1616.10) Worship is the act of a part identifying itself with the Whole; the finite with the Infinite; the son with the Father; time in the act of striking step with eternity. Worship is the act of the son's personal communion with the divine Father, the assumption of refreshing, creative, fraternal, and romantic attitudes by the human soul-spirit.

143:7.9 (1616.11) Although the apostles grasped only a few of his teachings at the camp, other worlds did, and other generations on earth will.

제144편. 길보아와 데가볼리에서

⇨ 143

유랜시아 책

145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44편

길보아와 데가볼리에서

섹션

소개

1. 길보아에서 야영함
2. 기도 에 관한 강론
3. 믿는 자의 기도
4. 기도 에 대한 부연 설명
5. 다른 형식의 기도
6. 요한의 사도들과 협의함
7. 데가볼리에 있는 도시들에서
8. 펠라 근처 야영지에서
9. 세례 요한의 죽음

소개

9월과 10월은 **길보아산** 비탈에 있는 한적한 야영지에 은거하면서 지냈다. **예수**께서는 9월 한 달을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따로 지내면서, 천국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예수와 사도들이 이때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의 경계지역에 은거하면서 지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매우 커졌으며;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과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든지 서로 관련돼 있다고 계속 의심하면서, **요한**을 여전히 감옥에 잡아둔 채, 석방하거나 처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유대지방** 또는 **갈릴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셋째 이유는: **요한**의 측근 제자들과 **예수**의 사도들 간에 쌓인 긴장감이 점차 심해졌는데, 신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나빠졌다.

예수께서는,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예비 업무기간이 거의 끝났고, 이어지는 진행으로, 자신의 지상 생애에서 완벽하고 최종적인 분투가 시작된

PAPER 144

AT GILBOA AND IN THE DECAPOLI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ilboa Encampment
2. The Discourse on Prayer
3. The Believer's Prayer
4. More about Prayer
5. Other Forms of Prayer
6. Conference with John's Apostles
7. In the Decapolis Cities
8. In Camp near Pella
9. Death of John the Baptist

INTRODUCTION

144:0.1 (1617.1) SEPTEMBER and October were spent in retirement at a secluded camp upon the slopes of Mount Gilboa. The month of September Jesus spent here alone with his apostles, teaching and instructing them in the truths of the kingdom.

144:0.2 (1617.2) There were a number of reasons why Jesus and his apostles were in retirement at this time on the borders of Samaria and the Decapolis. The Jerusalem religious rulers were very antagonistic; Herod Antipas still held John in prison, fearing either to release or execute him, while he continued to entertain suspicions that John and Jesus were in some way associated. These conditions made it unwise to plan for aggressive work in either Judea or Galilee. There was a third reason: the slowly augmenting tension between the leaders of John's disciples and the apostles of Jesus, which grew wors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believers.

144:0.3 (1617.3) Jesus knew that the days of the preliminary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were about over, that the next move involved the

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이행업무의 개시가 어떤 면에서든지 **세레 요한**을 시험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한동안 은거하면서, **요한**이 처형되든지 아니면 석방되어 공동으로 수고하려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을 때까지, 사도들을 재훈련시키면서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했다.

1. 길보아에서 야영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두 사도는 **예수**께 더 헌신하고, 천국 업무에 점점 더 열중하게 됐다. 그들의 헌신은 대부분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다방면의 가르침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예수**의 본성 또는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세 가지 이유로 은거하고 있음을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렸다:

1. 천국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2. **유대지방**과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

3. **세레 요한**의 숙명을 기다리기 위해.

길보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의 초기 생애와 **헤르몬 산**에서 겪은 체험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많이 이야기했으며; 또한 자신이 세레 받은 직후에, 언덕에서 40일 동안 일어난 것 가운데 일부를 알려줬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체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직접 당부했다.

그들은 이 9월에 몇 주 동안, 휴식하고 방문했으며,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불러서 봉사하게 한 이래 체험한 것에 대해 회상했고, 그때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조화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오래 휴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 그들은 **유대지방** 또는 **갈릴리**에서 곧 있게 될 공중 사역이,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최종 선포의 시작임을 깨달았지만, 천국이 도래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관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했다. **요한**과 **안드레**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했으며; **베드로**와 **야고보**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나다니엘**과 **도마**는 자신이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으며; **마태**, **빌립**, **열심당 시몬**은 확신 없이 혼동했으며; 쌍둥이 형제는 행복에 겨워서 논쟁에 무관심했으며; **가룟 유다**는 모호한 태도로 침묵했다.

예수께서는 이 시기의 대부분을 야영지 가까이 있는 산에서 홀로 지냈다. 이따금, **베드로**, **야**

beginning of the full and final effort of his life on earth, and he did not wish the launching of this undertaking to be in any manner either trying or embarrassing to John the Baptist. Jesus had therefore decided to spend some time in retirement rehearsing his apostles and then to do some quiet work in the cities of the Decapolis until John should be either executed or released to join them in a united effort.

1. THE GILBOA ENCAMPMENT

144:1.1 (1617.4) As time passed, the twelve became more devoted to Jesus and increasingly committed to the work of the kingdom. Their devotion was in large part a matter of personal loyalty. They did not grasp his many-sided teaching; they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nature of Jesus or the significance of his bestowal on earth.

144:1.2 (1617.5) Jesus made it plain to his apostles that they were in retirement for three reasons:

144:1.3 (1617.6) 1. To confirm their understanding of, an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44:1.4 (1617.7) 2. To allow opposition to their work in both Judea and Galilee to quiet down.

144:1.5 (1617.8) 3. To await the fate of John the Baptist.

144:1.6 (1617.9) While tarrying on Gilboa, Jesus told the twelve much about his early life and his experiences on Mount Hermon; he also revealed something of what happened in the hills during the forty days immediately after his baptism. And he directly charg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about these experiences until after he had returned to the Father.

144:1.7 (1618.1) During these September weeks they rested, visited, recounted their experiences since Jesus first called them to service, and engaged in an earnest effort to co-ordinate what the Master had so far taught them. In a measure they all sensed that this would be their last opportunity for prolonged rest. They realized that their next public effort in either Judea or Galilee would mark the beginning of the final proclamation of the coming kingdom, but they had little or no settled idea as to what the kingdom would be when it came. John and Andrew thought the kingdom had already come; Peter and James believed that it was yet to come; Nathaniel and Thomas frankly confessed they were puzzled; Matthew, Philip, and Simon Zelotes were uncertain and confused; the twins were blissfully ignorant of the controversy; and Judas Iscariot was silent, noncommittal.

144:1.8 (1618.2) Much of this time Jesus was alone on the mountain near the camp. Occasionally he took

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으나, 홀로 기도하거나 교류하기 위해 물러나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베레아** 언덕에서 40일을 지낸 후에, **아버지**와 교류한 이 시절을 기도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또한 **예수**께서 경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도 모순되지만,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체로 정확하다.

9월 한 달 동안 토의하는 중심 주제는 기도와 경배였다. 그들이 경배에 대한 토의를 여러 날 한 후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도마**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기억에 남을만한 강론을 했다.

요한은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도래하는 나라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요한**의 기도 형식을 금지한 적은 없었지만, **주님**이 그런 고정되고 틀에 박힌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관습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들은 매우 일찍부터 감지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허락할만한 간구 형식을 알고 싶어 했다. 주로 일반인들을 위한 간단한 기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때 **도마**의 간청에 응답하면서, 함축성 있는 기도 형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기로 허락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체류하던 셋째 주 어느 날 오후에 이것을 훈계했다.

2. 기도에 관한 강론

“**요한**은 진실로 너희에게 간단한 기도 형식을 가르쳤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영원히 정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너희가 군중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기도하는 너희가 자기 혼의 표현으로서 그런 관에 박힌 형식적 기원문을 사용하게 되기를, 그는 의도하지 않았다.

“기도는 영{靈}을 향한 혼{魂}의 태도인, 완전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며; 기도에는 아들신분으로서 하는 교류와 친교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는, 영이 표현했을 때, 협동하는 영적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성적 경배로 이끄는 영적 교류의 한 형태다. 참되게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理想}을 달성키 위해 하늘로 향하는 진지한 태도다.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 뜻을 확신하려고 계속 시도하도록 너희를 이끌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친구여,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with him Peter, James, or John, but more often he went off to pray or commune alone. Subsequent to the baptism of Jesus and the forty days in the Perea hills, it is hardly proper to speak of these seasons of communion with his Father as prayer, nor is it consistent to speak of Jesus as worshiping, but it is altogether correct to allude to these seasons as personal communion with his Father.

144:1.9 (1618.3) The central theme of the discussions throughout the entire month of September was prayer and worship. After they had discussed worship for some days, Jesus finally delivered his memorable discourse on prayer in answer to Thomas's request: “Master, teach us how to pray.”

144:1.10 (1618.4) John had taught his disciples a prayer, a prayer for salvation in the coming kingdom. Although Jesus never forbade his followers to use John's form of prayer, the apostles very early perceived that their Master did not fully approve of the practice of uttering set and formal prayers. Nevertheless, believers constantly requested to be taught how to pray. The twelve longed to know what form of petition Jesus would approve. And it was chiefly because of this need for some simple petition for the common people that Jesus at this time consented, in answer to Thomas's request, to teach them a suggestive form of prayer. Jesus gave this lesson one afternoon in the third week of their sojourn on Mount Gilboa.

2. THE DISCOURSE ON PRAYER

144:2.1 (1618.5) “John indeed taught you a simple form of prayer: ‘O Father, cleanse us from sin, show us your glory, reveal your love, and let your spirit sanctify our hearts forevermore, Amen!’ He taught this prayer that you might have something to teach the multitude. He did not intend that you should use such a set and formal petition as the expression of your own souls in prayer.

144:2.2 (1618.6) “Prayer is entirely a personal and spontaneous expression of the attitude of the soul toward the spirit; prayer should be the communion of sonship and the expression of fellowship. Prayer, when indited by the spirit, leads to co-operative spiritual progress. The ideal prayer is a form of spiritual communion which leads to intelligent worship. True praying is the sincere attitude of reaching heavenward for the attainment of your ideals.

144:2.3 (1619.1)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oul and should lead you to be persistent in your attempt to ascertain the Father's will. If any one of you has a neighbor, and you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Friend, lend me three loaves, for a friend of mine

데, 내게는 그들에게 차려낼 것이 하나도 없으니, 빵 세 덩이를 내게 빌려 달라'고 했지만; 그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빵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 너는 내 친구가 배고프다는 것과, 그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계속 설명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네 친구 됨을 인해서 일어나서 내게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 그가 일어나서 내게 필요한 만큼의 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끈질김이 필사적 사람에게서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너희가 영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꺼이 주시는 손에서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자식이 미련하게 요청했을 때, 자식의 잘못된 간청 내용 대신 부모의 지혜대로 주기를 주저할 아버지가 너희 중에 있겠느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미련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너희 자녀에게 생선이 필요하다면, 그물에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 그 뱀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 뱀을 아이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너희도 기도예 응답하는 방법을 알고, 너희 자녀에게 유익하고 알맞은 선물을 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요청하는 자들에게 영(靈)과 추가적인 많은 복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가 한동안 듣지 않았지만, 곧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계속 찾아와서 나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그 여자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너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며, 너희의 간청이, 위에 계신 공정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너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의 태도를 바꾸고, 혼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신앙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참된 신앙은, 혼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에 우연히 가로놓일 수 있는, 산더미 같은 물질적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on a journey has come to see me,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and if your neighbor answers, 'Trouble me not, for the door is now shut and the children and I are in bed; therefore I cannot rise and give you bread,' you will persist, explaining that your friend hungers, and that you have no food to offer him. I say to you, though your neighbor will not rise and give you bread because he is your friend, yet because of your importunity he will get up and give you as many loaves as you need. If, then, persistence will win favors even from mortal man, how much more will your persistence in the spirit win the bread of life for you from the willing hands of the Father in heaven. Again I say to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to you. For every 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of salvation will be opened.

144:2.4 (1619.2) "Which of you who is a father, if his son asks unwisely, would hesitate to give in accordance with parental wisdom rather than in the terms of the son's faulty petition? If the child needs a loaf, will you give him a stone just because he unwisely asks for it? If your son needs a fish, will you give him a watersnake just because it may chance to come up in the net with the fish and the child foolishly asks for the serpent? If you, then, being mortal and finite, know how to answer prayer and give good and appropriate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spirit and many additional blessings to those who ask him?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become discouraged.

144:2.5 (1619.3)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a certain judge who lived in a wicked city. This judge feared not God nor had respect for man. Now there was a needy widow in that city who came repeatedly to this unjust judge, saying, 'Protect me from my adversary.' For some time he would not give ear to her, but presently he said to himself: 'Though I fear not God nor have regard for man, yet because this widow ceases not to trouble me, I will vindicate her lest she wear me out by her continual coming.' These stories I tell you to encourage you to persist in praying and not to intimate that your petitions will change the just and righteous Father above. Your persistence, however, is not to win favor with God but to change your earth attitude and to enlarge your soul's capacity for spirit receptivity.

144:2.6 (1619.4) "But when you pray, you exercise so little faith. Genuine faith will remove mountains of material difficulty which may chance to lie in the path of soul expansion and spiritual progress."

3. 믿는 자의 기도

3. THE BELIEVER'S PRAYER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으며; 새로 제자 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 기도문을 **예수**께서 주시기를 원했다. 기도문에 관한 이 교훈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 세베데**가 말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이지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자주 간청하는, 새 신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 형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여전히 그런 기도문을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 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빚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당신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신자들을 위한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사도들이 **예수**께 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추종자들에게 여러 기도문을 가르쳤고, 모든 위대한 선생도 학생들을 위한 기도문을 고안했다. **유대인** 종교 교사들은, 회당에서나 길거리 모퉁이에서도 낭송하는, 스물다섯 내지 서른 개의 고정된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특히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혐오했다. 열두 사도는 이때까지 그가 기도하는 것을 겨우 몇 번 들었다. 그들은 그가 온 밤을 기도나 경배로 지새우는 것을 봤으며, 그가 간구하는 방법이나 형식을 무척 알고 싶어 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군중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정말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언제나 은밀히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홀췌 떠나 홀로 조용한 자연 환경 속으로 가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아버지**께로 상승한

144:3.1 (1619.5) But the apostles were not yet satisfied; they desired Jesus to give them a model prayer which they could teach the new disciples. After listening to this discourse on prayer, James Zebedee said: “Very good, Master, but we do not desire a form of prayer for ourselves so much as for the newer believers who so frequently beseech us, ‘Teach us how acceptably to pray to the Father in heaven.’”

144:3.2 (1619.6) When James had finished speaking, Jesus said: “If, then, you still desire such a prayer, I would present the one which I taught my brothers and sisters in Nazareth”:

144:3.3 (1620.1) 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4:3.4 (1620.2) Hallowed be your name.

144:3.5 (1620.3)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144:3.6 (1620.4)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44:3.7 (1620.5) Give us this day our bread for tomorrow;

144:3.8 (1620.6) Refresh our souls with the water of life.

144:3.9 (1620.7) And forgive us every one our debts

144:3.10 (1620.8)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144:3.11 (1620.9) Save us in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144:3.12 (1620.10) And increasingly make us perfect like yourself.

144:3.13 (1620.11) It is not strange that the apostles desired Jesus to teach them a model prayer for believers. John the Baptist had taught his followers several prayers; all great teachers had formulated prayers for their pupils. The religious teachers of the Jews had some twenty-five or thirty set prayers which they recited in the synagogues and even on the street corners. Jesus was particularly averse to praying in public. Up to this time the twelve had heard him pray only a few times. They observed him spending entire nights at prayer or worship, and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the manner or form of his petitions. They were really hard pressed to know what to answer the multitudes when they asked to be taught how to pray as John had taught his disciples.

144:3.14 (1620.12) Jesus taught the twelve always to pray in secret; to go off by themselves amidst the quiet surroundings of nature or to go in their rooms and shut the doors when they engaged in prayer.

144:3.15 (1620.13) After Jesus’ death and ascension to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소위 이 **주**의 기도문을 마치는 것이 많은 신자의 관습이 됐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두 줄이 빠지게 됐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구절이 이 기도문에 더해졌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집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공동체 형식의 기도문을 사도들에게 제시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구를 가르친 적이 없었으며, 오직 집단, 가족, 또는 공동체가 드리는 간구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자청해서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예수께서는 효과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1. 이타적{利他的}으로 --자기만을 위하지 않음.
2. 믿음으로 --신앙에 의거함.
3. 진지하게 --마음이 정직함.
4. 지성적으로 --빛에 따라서.
5.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히_지혜로우신 뜻에 복종함.

예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제자들을 위해서, 특히 열두 사도를 위해서였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낙원 아버지**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경배에 많이 몰두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4.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

기도에 관한 강론이 있는 다음에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이런 가장_중요하고 경건한 습관에 관해 **주님**께 계속 질문했다. 이 기간에, 기도와 경배에 관해 사도들에게 준 **예수**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현대 용어로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어떤 간구든지 진지하게 간절히 반복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으로 표현된다면, 아무리 경솔하든지,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든지 상관없이, 영적 감수성을 위한 혼의 수용력을 확장시키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마다, 아들신분이 선물임을 기억해라. 어떤 자녀든지, 아들이나 딸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 자녀는 부모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은혜를 입고 영의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하듯이 하늘 나라를--곧 신성한 아들 신분을--**받아들여야**한다. 의로움은--곧 점진적 성품 발달은--너희가 노력으로 얻지만, 아들신분은 은혜로 신앙을 통해서 받는다.

the Father it became the practice of many believers to finish this so-called Lord's prayer by the addition of —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Still later on, two lines were lost in copying, and there was added to this prayer an extra clause, reading: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more."

144:3.16 (1620.14) Jesus gave the apostles the prayer in collective form as they had prayed it in the Nazareth home. He never taught a formal personal prayer, only group, family, or social petitions. And he never volunteered to do that.

144:3.17 (1620.15) Jesus taught that effective prayer must be:

144:3.18 (1620.16) 1. Unselfish — not alone for oneself.

144:3.19 (1620.17) 2. Believing — according to faith.

144:3.20 (1620.18) 3. Sincere — honest of heart.

144:3.21 (1620.19) 4. Intelligent — according to light.

144:3.22 (1620.20) 5. Trustful — in submission to the Father's all-wise will.

144:3.23 (1620.21) When Jesus spent whole nights on the mountain in prayer, it was mainly for his disciples, particularly for the twelve. The Master prayed very little for himself, although he engaged in much worship of the nature of understanding communion with his Paradise Father.

4. MORE ABOUT PRAYER

144:4.1 (1620.22) For days after the discourse on prayer the apostles continued to ask the Master questions regarding this all-important and worshipful practice. Jesus' instruction to the apostles during these days, regarding prayer and worship, may be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44:4.2 (1621.1) The earnest and longing repetition of any petition, when such a prayer is the sincere expression of a child of God and is uttered in faith, no matter how ill-advised or impossible of direct answer, never fails to expand the soul's capacity for spiritual receptivity.

144:4.3 (1621.10) In all praying, remember that sonship is a *gift*. No child has aught to do with *earning* the status of son or daughter. The earth child comes into being by the will of its parents. Even so, the child of God comes into grace and the new life of the spirit by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refore must the kingdom of heaven — divine sonship — be *received* as by a little child. You earn righteousness — progressive character development — but you receive sonship by grace

예수의 혼이 온갖 우주의 **최상급 통치자**들과 초월교류를 이루도록, 기도가 그를 이끌어 올렸다. 기도가 이 세상 필사자를 참된 경배의 교류로 이끌어 올려줄 것이다. 영적 감수성을 위한 혼의 수용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福)의 양을 결정하는데, 그 복은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 있고, 그 복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의식(意識)하여 깨달을 수 있다.

기도,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경배는, 매일의 일상적 삶, 즉 물질 실존의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법이다. 기도는 영성화 된 자아_실현에 접근하고, 지적 및 종교적으로 달성하는 개성에 접근하는 통로다.

기도는 해로운 자기반성에 대한 해독제다.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혼에게 그런 유익한 사역을 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동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유익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이용했다. **주님**은 대개 단수형(單數形)이 아니라 복수형(複數形)으로 기도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칠 때에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곤 했다.

기도는, 인류의 여러 종족이 세운 물질 문명 한가운데서 영 생명체가 하는 호흡이다. 경배는, 쾌락을 추구하는 필사자 세대를 구원한다.

혼의 영적 건전지를 재충전하는 것에 기도가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경배는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영이 보내는 우주 방송을 수신(受信)하려고, 혼 속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자녀가 영 **아버지**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인간의 뜻을 버리고 신성한 뜻을 취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기도는, 현재 상태를 고쳐서 장차 반드시 돼야 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다.

예수가 길게 밤을 지새우는 경우에 그토록 자주 그와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이 입 밖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의 모든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곧 말하지 않고-- 했다.

모든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납득했다.

5. 다른 형식의 기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때때로, 추가적인 여러 기도 형식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일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주어졌고, 이 "비유적인 기도"를 군중에게는 가르치

and through faith.

144:4.4 (1620.11) Prayer led Jesus up to the supercommunion of his soul with the Supreme Rul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Prayer will lead the mortals of earth up to the communion of true worship. The soul's spiritual capacity for receptivity determines the quantity of heavenly blessings which can be personally appropriated and consciously realized as an answer to prayer.

144:4.5 (1620.12) Prayer and its associated worship is a technique of detachment from the daily routine of life, from the monotonous grind of material existence. It is an avenue of approach to spiritualized self-realization and individuality of intellectual and religious attainment.

144:4.6 (1620.13) Prayer is an antidote for harmful introspection. At least, prayer as the Master taught it is such a beneficent ministry to the soul. Jesus consistently employed the beneficial influence of praying for one's fellows. The Master usually prayed in the plural, not in the singular. Only in the great crises of his earth life did Jesus ever pray for himself.

144:4.7 (1620.14)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pirit life in the midst of the material civilization of the races of mankind. Worship is salvation for the pleasure-seeking generations of mortals.

144:4.8 (1620.15) As prayer may be likened to recharging the spiritual batteries of the soul, so worship may be compared to the act of tuning in the soul to catch the universe broadcasts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144:4.9 (1620.16) Prayer is the sincere and longing look of the child to its spirit Father; it is a psychologic process of exchanging the human will for the divine will. Prayer is a part of the divine plan for making over that which is into that which ought to be.

144:4.10 (1620.17) One of the reasons why Peter, James, and John, who so often accompanied Jesus on his long night vigils, never heard Jesus pray, was because their Master so rarely uttered his prayers as spoken words. Practically all of Jesus' praying was done in the spirit and in the heart — silently.

144:4.11 (1620.18) Of all the apostles, Peter and James came the nearest to comprehending the Master's teaching about prayer and worship.

5. OTHER FORMS OF PRAYER

144:5.1 (1621.11)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remainder of Jesus' sojourn on earth, he brought to the notice of the apostles several additional forms of prayer, but he did this only in illustration of

지 말라고 분부했다. 그것들 가운데 다수는 다른 인간거주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열두 사도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문을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우주 영역들을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당신의 성품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것처럼, 불완전하게나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날 활기차게 하는 빛의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무궁한 권세인 영광의 거주지는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원한 선물을 주소서.

과연 그러하오며, 영원토록 참되니이다.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어버리**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주소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이 조정하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게 하셔서,

천사들이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로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진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사악한 범죄로부터 구출하소서.

우리가 우리 동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일 때 우리에게 참으소서.

우리 피조물의 마음 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 주소서.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지나갈 때, 당신의 손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종말이 올 때, 충실한 우리의 영을 당신의 품속으로 받아 주소서.

과연 그러하오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other matters, and he enjoined that these “parable prayers” should not be taught to the multitudes. Many of them were from other inhabited planets, but this fact Jesus did not reveal to the twelve. Among these prayers were the following:

144:5.2 (1622.1) Our Father in whom consist the universe realms,

144:5.3 (1622.2) Uplifted be your name and all-glorious your character.

144:5.4 (1622.3) Your presence encompasses us, and your glory is manifested

144:5.5 (1622.4) Imperfectly through us as it is in perfection shown on high.

144:5.6 (1622.5) Give us this day the vivifying forces of light,

144:5.7 (1622.6) And let us not stray into the evil bypaths of our imagination,

144:5.8 (1622.7) For yours is the glorious indwelling, the everlasting power,

144:5.9 (1622.8) And to us, the eternal gift of the infinite love of your Son.

144:5.10 (1622.9) Even so, and everlastingly true.

144:5.11 (1622.10) Our creative Parent, who is in the center of the universe,

144:5.12 (1622.11) Bestow upon us your nature and give to us your character.

144:5.13 (1622.12) Make us sons and daughters of yours by grace

144:5.14 (1622.13) And glorify your name through our eternal achievement.

144:5.15 (1622.14) Your adjusting and controlling spirit give to live and dwell within us

144:5.16 (1622.15) That we may do your will on this sphere as angels do your bidding in light.

144:5.17 (1622.16) Sustain us this day in our progress along the path of truth.

144:5.18 (1622.17) Deliver us from inertia, evil, and all sinful transgression.

144:5.19 (1622.18) Be patient with us as we show loving-kindness to our fellows.

144:5.20 (1622.19) Shed abroad the spirit of your mercy in our creature hearts.

144:5.21 (1622.20) Lead us by your own hand, step by step, through the uncertain maze of life,

144:5.22 (1622.21) And when our end shall come, receive into your own bosom our faithful spirits.

144:5.23 (1622.22) Even so, not our desires but your will be done.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화시키소서.

우리를 영원한 진보의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권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스랍 무리의 현존과 안내에 대해,

신성한 의식{意識}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소서.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 올려 인도하시고;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변호해 주소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 주시고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보의 경로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신성한 왕권을 세우시고,

그리하여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통로 속으로 벗어나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물 옆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닮게 만드심으로 즐거워하소서.

종말에 가서는, 신성한 **아들**을 인해,

144:5.24 (1622.23) Our perfect and righteous heavenly Father,

144:5.25 (1622.24) This day guide and direct our journey.

144:5.26 (1622.25) Sanctify our steps and co-ordinate our thoughts.

144:5.27 (1622.26) Ever lead us in the ways of eternal progress.

144:5.28 (1622.27) Fill us with wisdom to the fullness of power

144:5.29 (1622.28) And vitalize us with your infinite energy.

144:5.30 (1622.29) Inspire us with the divine consciousness of

144:5.31 (1622.30) The presence and guidance of the seraphic hosts.

144:5.32 (1622.31) Guide us ever upward in the pathway of light;

144:5.33 (1622.32) Justify us fully in the day of the great judgment.

144:5.34 (1622.33) Make us like yourself in eternal glory

144:5.35 (1622.34) And receive us into your endless service on high.

144:5.36 (1622.35) Our Father who is in the mystery,

144:5.37 (1622.36) Reveal to us your holy character.

144:5.38 (1622.37) Give your children on earth this day

144:5.39 (1622.38) To see the way, the light, and the truth.

144:5.40 (1622.39) Show us the pathway of eternal progress

144:5.41 (1622.40) And give us the will to walk therein.

144:5.42 (1622.41) Establish within us your divine kingship

144:5.43 (1622.42) And thereby bestow upon us the full mastery of self.

144:5.44 (1622.43) Let us not stray into paths of darkness and death;

144:5.45 (1622.44) Lead us everlastingly beside the waters of life.

144:5.46 (1622.45) Hear these our prayers for your own sake;

144:5.47 (1622.46) Be pleased to make us more and more like yourself.

144:5.48 (1623.1) At the end, for the sake of the divine Son,

영원한 품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과연 그러하오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여,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영의 선물과 증여에 의해,

당신 자신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셔서,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나타내시듯이,

그렇게 이 구체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재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형제관계의 즐거운 사역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봉사의 경로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우리가 보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소서.

모든 일을 잘 행하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사랑하시는_친절함을 내리시고,

우리의 자비로 그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그것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되며,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혼의 협조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필사자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온전히_신실하신 **근원** 그리고 전능하신 **중심**이시여,

당신의 온전히_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경배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관대함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

144:5.49 (1623.2) Receive us into the eternal arms.

144:5.50 (1623.3) Even so, not our will but yours be done.

144:5.51 (1623.4) Glorious Father and Mother, in one parent combined,

144:5.52 (1623.5) Loyal would we be to your divine nature.

144:5.53 (1623.6) Your own self to live again in and through us

144:5.54 (1623.7) By the gift and bestowal of your divine spirit,

144:5.55 (1623.8) Thus reproducing you imperfectly in this sphere

144:5.56 (1623.9) As you are perfectly and majestically shown on high.

144:5.57 (1623.10) Give us day by day your sweet ministry of brotherhood

144:5.58 (1623.11) And lead us moment by moment in the pathway of loving service.

144:5.59 (1623.12) Be you ever and unfailingly patient with us

144:5.60 (1623.13) Even as we show forth your patience to our children.

144:5.61 (1623.14) Give us the divine wisdom that does all things well

144:5.62 (1623.15) And the infinite love that is gracious to every creature.

144:5.63 (1623.16) Bestow upon us your patience and loving-kindness

144:5.64 (1623.17) That our charity may enfold the weak of the realm.

144:5.65 (1623.18) And when our career is finished, make it an honor to your name,

144:5.66 (1623.19) A pleasure to your good spirit, and a satisfaction to our soul helpers.

144:5.67 (1623.20) Not as we wish, our loving Father, but as you desire the eternal good of your mortal children,

144:5.68 (1623.21) Even so may it be.

144:5.69 (1623.22) Our all-faithful Source and all-powerful Center,

144:5.70 (1623.23) Reverent and holy be the name of your all-gracious Son.

144:5.71 (1623.24) Your bounties and your blessings have descended upon us,

144:5.72 (1623.25) Thus empowering us to perform

하도록 힘주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생명의 나무를 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수{生水}로 새롭게 하소서.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어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시킴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필사적 종말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당신에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속으로 보내주소서.

열매 맺는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세자**에게 영광을 돌리리이다.

과연 그러하오며, 끝없는 우주 전체에 그러하나다.

우주의 비밀한 장소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며, 당신의 자비를 경외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경하나이다.

의로움의 해로 정오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며,

당신께서 황혼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일 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웅대한신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여를 이루시고,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생명을 영원하게 만드소서.

우주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며;

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소서.

your will and execute your bidding.

144:5.73 (1623.26) Give us moment by moment the sustenance of the tree of life;

144:5.74 (1623.27) Refresh us day by day with the living waters of the river thereof.

144:5.75 (1623.28) Step by step lead us out of darkness and into the divine light.

144:5.76 (1623.29) Renew our minds by the transformations of the indwelling spirit,

144:5.77 (1623.30) And when the mortal end shall finally come upon us,

144:5.78 (1623.31) Receive us to yourself and send us forth in eternity.

144:5.79 (1623.32) Crown us with celestial diadems of fruitful service,

144:5.80 (1623.33) And we shall glorif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Influence.

144:5.81 (1623.34) Even so, throughout a universe without end.

144:5.82 (1623.35) Our Father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s of the universe,

144:5.83 (1623.36) Honored be your name, revered your mercy, and respected your judgment.

144:5.84 (1623.37) Let the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us at noontime,

144:5.85 (1623.38) While we beseech you to guide our wayward steps in the twilight.

144:5.86 (1623.39) Lead us by the hand in the ways of your own choosing

144:5.87 (1623.40) And forsake us not when the path is hard and the hours are dark.

144:5.88 (1623.41) Forget us not as we so often neglect and forget you.

144:5.89 (1623.42) But be you merciful and love us as we desire to love you.

144:5.90 (1623.43) Look down upon us in kindness and forgive us in mercy

144:5.91 (1623.44) As we in justice forgive those who distress and injure us.

144:5.92 (1624.1) May the love, devotion, and bestowal of the majestic Son

144:5.93 (1624.2) Make available life everlasting with your endless mercy and love.

144:5.94 (1624.3) May the God of universes bestow upon us the full measure of his spirit;

144:5.95 (1624.4) Give us grace to yield to the leading of this spirit.

헌신된 스랍 무리들의 사랑하는 사역으로,

세상 끝날까지 **아들**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점점 더 당신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낙원**의 품안으로 받아 주소서.

과연 그러하오며, 중여되는 **아들**의 이름으로,

또한 **지존자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이 이루어지이다.

사도들은 이런 기도문을 공개적인 가르침 사이에 마음대로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계시로부터 자신의 개인 종교 체험에 많은 혜택을 입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상세한 교훈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들 및 모범 되는 다른 기도문들을 설명의 예로 사용했는데, 건본이 될 만한 이 일곱 개의 기도가 이 기록에 복사되도록 특별히 허락했다.

6. 요한의 사도들과 협의함

10월 1일 무렵, **빌립**과 몇 명의 동료 사도가 가까운 마을에서 음식물을 사던 중에, **세레 요한**의 사도 가운데 몇 명을 만나게 됐다. 시장{市場}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결과로, **예수**의 사도들과 **요한**의 사도들이 **길보아** 야영지에서 삼 주 동안 협의를 하게 됐는데, **요한**이 **예수**의 전례를 본받아서 최근에 열두 명의 지도자를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충성스런 지지자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는 이 공동 협의가 있던 첫 주간 내내 **길보아** 야영지에 있었지만, 마지막 두 주 동안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 달의 둘째 주가 시작될 무렵에, **아브넬**은 **길보아** 야영지에 있던 모든 동역자를 소집했고,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스물네 명의 이 사람들은, 삼 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에 엿새 동안 회합을 가졌다. 첫 주에는, 오전, 오후, 그리고 밤 회합 사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어울렸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동 토의를 주관해 주기 원했지만, 그는 그들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한사코 거절했으며, 그럼에도 그는 세 번의 경우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로 동의했다. **예수**께서는 스물네 명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 강연들은, 동정심, 협동, 아량에 관한 것이었다.

안드레와 **아브넬**이, 두 사도 집단의 합동 모

144:5.96 (1624.5) By the loving ministry of devoted seraphic hosts

144:5.97 (1624.6) May the Son guide and lead us to the end of the age.

144:5.98 (1624.7) Make us ever and increasingly like yourself

144:5.99 (1624.8) And at our end receive us into the eternal Paradise embrace.

144:5.100 (1624.9) Even so, in the name of the bestowal Son

144:5.101 (1624.10) And for the honor and glory of the Supreme Father.

144:5.102 (1624.11) Though the apostles were not at liberty to present these prayer lessons in their public teachings, they profited much from all of these revelations in thei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s. Jesus utilized these and other prayer models as illustr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timate instruction of the twelve, and specific permission has been granted for transcribing these seven specimen prayers into this record.

6. CONFERENCE WITH JOHN'S APOSTLES

144:6.1 (1624.12) Around the first of October, Philip and some of his fellow apostles were in a near-by village buying food when they met some of the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As a result of this chance meeting in the market place there came about a three weeks' conference at the Gilboa camp between the apostles of Jesus and the apostles of John, for John had recently appointed twelve of his leaders to be apostles, following the precedent of Jesus. John had done this in response to the urging of Abner, the chief of his loyal supporters. Jesus was present at the Gilboa camp throughout the first week of this joint conference but absented himself the last two weeks.

144:6.2 (1624.13) By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eek of this month, Abner had assembled all of his associates at the Gilboa camp and was prepared to go into council with the apostles of Jesus. For three weeks these twenty-four men were in session three times a day and for six days each week. The first week Jesus mingled with them between their forenoon, afternoon, and evening sessions. They wanted the Master to meet with them and preside over their joint deliberations, but he steadfastly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ir discussions, though he did consent to speak to them on three occasions. These talks by Jesus to the twenty-four were on sympathy, co-operation, and tolerance.

144:6.3 (1624.14) Andrew and Abner alternated in

임에서 사회를 번갈아 맡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토의해야 할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고민거리를 **예수**께 거듭 가지고 있으나, 단지 이런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이고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각 개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표자이고, 집단에 대해서가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 의문에 대한 다양한 인간적 해석의 조화에 관해서, 그리고 종교의 사회화에 관해서 토론할 때에는, 너희 자신의 판단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적이지 않은 이런 취지의 문제에서 너희가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나도 온전히 동의하고 진정으로 협동할 것을 미리 약속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토론하는 데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2주 동안 떠나있겠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한 후에 산을 내려갔는데, 그들은 2주 내내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 기간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스물네 명은,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은 영향으로 매우 당황했으므로, 다시 자신의 문제들 가운데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했다. 아무튼, 그들은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토론에 열중하게 됐고, 도움을 구하러 **예수**께 갈 수 없었다.

그 모임이 동의한 첫째 항목은, **예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양쪽 사도들은, 이 기도를 신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다음으로 결정한 것은, **요한**이 살아있는 한, 그가 감옥에 있든지 석방되든지, 두 열두 사도 집단은 각각 현재 일을 계속하는 것과, 수시로 합의해 정해질 장소에서 한 주 동안의 합동 모임을 세 달마다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세례에 대한 현안이었다. 그들의 어려움이 더 심화된 것은, 그것에 대해 **예수**께서 어떤 발언이든지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요한**이 살아 있는 한, 혹은 그들이 합동으로 이 결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요한**의 사도들만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의 사도들만 새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훈련시킨다. 따라서 그때부터 **요한**이 죽을 때까지,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요한**의 사도 중에서 두 명이 **예수** 및 사도들과 동행했는데, 그것은 세례가 천국 업무로 표면적인 연합을 이룰 때 첫 단계가 되게 하기로, 합동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presiding over these joint meetings of the two apostolic groups. These men had many difficulties to discuss and numerous problems to solve. Again and again would they take their troubles to Jesus, only to hear him say: “I am concerned only with your personal and purely religious problems. I am the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to the individual, not to the group. If you are in personal difficulty in your relations with God, come to me, and I will hear you and counsel you in the solution of your problem. But when you enter upon the co-ordination of divergent human interpretations of religious questions and upon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you are destined to solve all such problems by your own decisions. Albeit, I am ever sympathetic and always interested, and when you arrive at your conclusions touching these matters of nonspiritual import, provided you are all agreed, then I pledge in advance my full approval and hearty co-operation. And now, in order to leave you unhampered in your deliberations, I am leaving you for two weeks. Be not anxious about me, for I will return to you. I will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for we have other realms besides this one.”

144:6.4 (1625.1) After thus speaking, Jesus went down the mountainside, and they saw him no more for two full weeks. And they never knew where he went or what he did during these days. It was some time before the twenty-four could settle down to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ir problems, they were so disconcerted by the absence of the Master. However, within a week they were again in the heart of their discussions, and they could not go to Jesus for help.

144:6.5 (1625.2) The first item the group agreed upon was the adoption of the prayer which Jesus had so recently taught them. It was unanimously voted to accept this prayer as the one to be taught believers by both groups of apostles.

144:6.6 (1625.3) They next decided that, as long as John lived, whether in prison or out, both groups of twelve apostles would go on with their work, and that joint meetings for one week would be held every three months at places to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144:6.7 (1625.4) But the most serious of all their problems was the question of baptism. Their difficulties were all the more aggravated because Jesus had refused to make any pronouncement upon the subject. They finally agreed: As long as John lived, or until they might jointly modify this decision, only the apostles of John would baptize believers, and only the apostles of Jesus would finally instruct the new disciples. Accordingly, from that time until after the death of John, two of the apostles of John accompanied Jesus and his apostles to baptize believers, for the joint council had unanimously voted that baptism was to become the initial step in the outward alliance with

그다음으로 동의한 것은, **요한**이 죽을 경우에 **요한**의 사도들이 **예수**께 스스로 나아와서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예수** 또는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였다.

그다음에는, **요한**이 죽을 경우에, **예수**의 사도들이 신성한 **영**의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 물세례를 시작하기로 가결했다. 세례에 대한 설교에서 회개를 포함해야 할지 아닐지는 선택의 여지로 남겨졌으며; 그 집단을 제한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도들은 설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 **예수**의 사도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노력을 조화시키고,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집단 이행업무를 조직하고, 외부적인 관례를 제정하고, 개인적인 종교 실행을 사회화시키려는, **예수**의 추종자들의 첫 시도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다른 사소한 일이 거론됐고, 그 해결책이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스물네 명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예수**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던 이 두 주 동안, 진정으로 훌륭한 체험을 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것, 토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협상하는 것을 배웠고, 그 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정적이었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의 정직한 의견에 아량을 베풀었다.

재정상 쟁점들에 대한 마지막 토의를 하던 어느 날 오후에 **예수**께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토론에 대해 듣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귀를 기울인 후에, 말씀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너희가 결정한 것이고, 나는 너희 각자 이 일치된 결정의 참 뜻을 실행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때로부터 두 달 반 후에, **요한**이 처형됐고, 이 기간 내내, **요한**의 사도들은 **예수** 및 열두 사도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계절 동안 함께 일했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길보아** 야영지는 서기 27년 11월 2일에 해체됐다.

7. 데가볼리에 있는 도시들에서

11월과 12월 내내, **예수**와 스물네 명은 **데가볼리**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에서 조용히 일했는데, 주로 **스키토폴리스**, **거라사**, **아빌라**, **가다라** 등지에서 일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요한**의 업무와 조직을 넘겨받는 예비 과정 중에서 마지막 기간이었다. 새로운 계시를 사회화한 종교는, 구원을 모색하는 기존 종교의 형식 및 관례와 타협하는 값을 항상 치르게 마련이다. 세례는, **예수**의 추종자들

the affairs of the kingdom.

144:6.8 (1625.5) It was next agreed, in case of the death of John, that the apostles of John would present themselves to Jesus and become subject to his direction, and that they would baptize no more unless authorized by Jesus or his apostles.

144:6.9 (1625.6) And then was it voted that, in case of John's death, the apostles of Jesus would begin to baptize with water as the emblem of the baptism of the divine Spirit. As to whether or not repentance should be attached to the preaching of baptism was left optional; no decision was made binding upon the group. John's apostles preached, "Repent and be baptized." Jesus' apostles proclaimed, "Believe and be baptized."

144:6.10 (1625.7)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first attempt of Jesus' followers to co-ordinate divergent efforts, compose differences of opinion, organize group undertakings, legislate on outward observances, and socialize personal religious practices.

144:6.11 (1625.8) Many other minor matters were considered and their solutions unanimously agreed upon. These twenty-four men had a truly remarkable experience these two weeks when they were compelled to face problems and compose difficulties without Jesus. They learned to differ, to debate, to contend, to pray, and to compromise, and throughout it all to remain sympathetic with the other person's viewpoint and to maintain at least some degree of tolerance for his honest opinions.

144:6.12 (1625.9) On the afternoon of their final discussion of financial questions, Jesus returned, heard of their deliberations, listened to their decisions, and said: "These, then, are your conclusions, and I shall help you each to carry out the spirit of your united decisions."

144:6.13 (1626.1) Two months and a half from this time John was executed, and throughout this period the apostles of John remained with Jesus and the twelve. They all worked together and baptized believers during this season of labor in the cities of the Decapolis. The Gilboa camp was broken up on November 2, A.D. 27.

7. IN THE DECAPOLIS CITIES

144:7.1 (1626.2) Throughout the months of November and December, Jesus and the twenty-four worked quietly in the Greek cities of the Decapolis, chiefly in Scythopolis, Gerasa, Abila, and Gadara. This was really the end of that preliminary period of taking over John's work and organization. Always does the socialized religion of a new revelation pay the price of compromise with the established forms and usages of the preceding religion which

이, 사회화한 한 종교 집단으로서, **세레 요한**의 추종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치러야했던 값이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치면서, 물세례 외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는 **예수**께서 거의 공중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스물네 명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요한**의 열두 사도와는 여러 차례 특별 회합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왜 **예수**께서 감옥에 있는 **요한**을 방문하러 가지 않았으며, 왜 그가 **요한**의 석방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외형적 표적 일으키기를 거절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길보아** 야영지로 오기 전에는 주로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를 믿었으나, 그 뒤에는 곧 **주님**과, 그리고 그의 교훈과 직접 접촉한 결과로 믿기 시작했다.

이 두 달 동안, 그 집단은 대부분 짝을 지어 일했는데, **예수**의 사도 한 사람과 **요한**의 사도 한 사람이 함께 일했다. **요한**의 사도가 세례를 줬고, **예수**의 사도는 가르쳤으며, 그동안 그들 모두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방인과 변절한 **유대인** 가운데 많은 혼을 납득시켰다.

요한의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아브넬**은, **예수**를 충심으로 믿게 됐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위임한 70인 선생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다.

8. 펠라 근처 야영지에서

12월 후반기에, 그들은 모두 **펠라**에서 가까운 **요단강** 근처로 갔고, 거기서 다시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이 야영지로 찾아 왔다. **예수**께서 어느 날 오후에 대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요한**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 **세레자**로부터 마지막 전갈을 **주님**께 전하러 왔다.

요한은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기간 대부분, **예수**께서 매우 조용히 일을 진행했으므로; **요한**이 천국에 관해 궁금히 여기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요한**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중간에 말씀을 중단시키고 말했다: "**세레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당신이 정말 **구원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잠시 멈췄다가 **요한**의 친구들에게 말씀했다: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되,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

it seeks to salvage. Baptism was the price which the followers of Jesus paid in order to carry with them, as a socialized religious group, the followers of John the Baptist. John's followers, in joining Jesus' followers, gave up just about everything except water baptism.

144:7.2 (1626.3) Jesus did little public teaching on this mission to the cities of the Decapolis. He spent considerable time teaching the twenty-four and had many special sessions with John's twelve apostles. In time they became more understanding as to why Jesus did not go to visit John in prison, and why he made no effort to secure his release. But they never could understand why Jesus did no marvelous works, why he refused to produce outward signs of his divine authority. Before coming to the Gilboa camp, they had believed in Jesus mostly because of John's testimony, but soon they were beginning to believe as a result of their own contact with the Master and his teachings.

144:7.3 (1626.4) For these two months the group worked most of the time in pairs, one of Jesus' apostles going out with one of John's. The apostle of John baptized, the apostle of Jesus instructed, while they both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y understood it. And they won many souls among these gentiles and apostate Jews.

144:7.4 (1626.5) Abner, the chief of John's apostles, became a devout believer in Jesus and was later on made the head of a group of seventy teachers whom the Master commissioned to preach the gospel.

8. IN CAMP NEAR PELLA

144:8.1 (1626.6) The latter part of December they all went over near the Jordan, close by Pella, where they again began to teach and preach. Both Jews and gentiles came to this camp to hear the gospel. It was while Jesus was teaching the multitude one afternoon that some of John's special friends brought the Master the last message which he ever had from the Baptist.

144:8.2 (1626.7) John had now been in prison a year and a half, and most of this time Jesus had labored very quietly; so it was not strange that John should be led to wonder about the kingdom. John's friends interrupted Jesus' teaching to say to him: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ask — are you truly the Deliverer,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144:8.3 (1626.8) Jesus paused to say to John's friends: "Go back and tell John that he is not forgotten. Tell him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at the poor have good tidings preached to them."

리고 예수께서는, 요한의 사자(使者)들에게 말씀을 덧붙인 후에, 다시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요한이 천국 복음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단지, 내 제자들이기도 한, 자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질문한 것뿐이다. 요한은 약한 자가 아니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너희에게 묻겠는데: 너희는 요한에게서 무엇을 봤더냐--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분이 변덕스럽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풍족하게 사는 이들은 대개 왕궁의 뜰이나 부자의 저택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요한을 볼 때 무엇을 찾았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는 선지자보다 훨씬 큰 자다. 요한에 대해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는데; 그가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고 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으나; 하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요한의 사도들은 그날 이후로 예수께 확실히 결합했다. 이 사건은 요한과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동의 표시였다.

그 사자(使者)들은 아브넬과 이야기한 후에,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 마케러스로 떠났다. 그는 크게 위안 받았고, 그의 신앙은 예수의 말씀과 아브넬의 전갈로 인해 강화됐다.

예수께서는 이날 오후에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 가운데 다수는, 요한의 메시지뿐 아니라 내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데, 그들이 동료들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통곡해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일부도 그렇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희는 그가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바로 이 사람들은, ‘보라, 먹기를 탐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다. 정말로, 저희가 정당하지는 그 결과가 입증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 숨기시는 반면, 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심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며;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의 혼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And when Jesus had spoken further to the messengers of John, he turned again to the multitude and said: “Do not think that John doubts the gospel of the kingdom. He makes inquiry only to assure his disciples who are also my disciples. John is no weakling. Let me ask you who heard John preach before Herod put him in prison: What did you behold in John — a reed shaken with the wind? A man of changeable moods and clothed in soft raiment? As a rule they who are gorgeously appareled and who live delicately are in kings’ courts and in the mansions of the rich. But what did you see when you beheld John? A prophet? Yes, I say to you, and much more than a prophet. Of John it wa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you.’

144:8.4 (1627.1) “Verily, verily,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arisen a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but small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because he has been born of the spirit and knows that he has become a son of God.”

144:8.5 (1627.2) Many who heard Jesus that day submitted themselves to John’s baptism, thereby publicly professing entrance into the kingdom. And the apostles of John were firmly knit to Jesus from that day forward. This occurrence marked the real union of John’s and Jesus’ followers.

144:8.6 (1627.3) After the messengers had conversed with Abner, they departed for Machaerus to tell all this to John. He was greatly comforted, and his faith was strengthened by the words of Jesus and the message of Abner.

144:8.7 (1627.4) On this afternoon Jesus continued to teach, saying: “But to what shall I liken this generation? Many of you will receive neither John’s message nor my teaching. You are like the children playing in the market place who call to their fellows and say: ‘We piped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wailed and you did not mourn.’ And so with some of you.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id he had a devil. The Son of Man comes eating and drinking, and these same people say: ‘Behold, a gluttonous man and a winebibber,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Truly,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

144:8.8 (1627.5) “It would appear that the Father in heaven has hidden some of these truths from the wise and haughty, while he has revealed them to babes. But the Father does all things well; the Father reveals himself to the universe by the methods of his own choosing. Come, therefor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you shall find rest for your souls. Take upon you the divine yoke, and you will experience the peace of God,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9. 세례 요한의 죽음

서기 28년 1월 10일 밤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에 따라서 처형됐다. **마캐러스**로 갔던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다음 날 그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헤롯**에게 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무덤에 묻었으며, 나중에는 다시 **아브넬**의 고향인 **세바스테**에 묻었다. 이튿날인 1월 12일에, 그들은 **펠라** 근처에 있던, **요한**과 **예수**의 사도들의 야영지로 가서,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받아 무리를 해산시키고, 스물네 명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씀했다: “**요한**이 죽었다. **헤롯**이 그의 목을 뺐다. 오늘 밤에 합동 회의를 열고 너희의 일을 그에 따라 준비해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천국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선포{宣布}할 때가 왔다. 우리는 내일 **갈릴리**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서기 28년 1월 13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스물다섯 명쯤 되는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길을 떠났으며, 그날 밤 **세베대**의 집에 묵었다.

9. DEATH OF JOHN THE BAPTIST

144:9.1 (1627.6) John the Baptist was executed by order of Herod Antipas on the evening of January 10, A.D. 28. The next day a few of John's disciples who had gone to Machaerus heard of his execution and, going to Herod, made request for his body, which they put in a tomb, later giving it burial at Sebaste, the home of Abner. The following day, January 12, they started north to the camp of John's and Jesus' apostles near Pella, and they told Jesus about the death of John. When Jesus heard their report, he dismissed the multitude and, calling the twenty-four together, said: "John is dead. Herod has beheaded him. Tonight go into joint council and arrange your affairs accordingly. There shall be delay no longer. The hour has come to proclaim the kingdom openly and with power. Tomorrow we go into Galilee."

144:9.2 (1627.7) Accordingly, early on the morning of January 13, A.D. 28, Jesus and the apostles, accompanied by some twenty-five disciples, made their way to Capernaum and lodged that night in Zebedee's house.

제 145편.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많았던 나흘

⇨ 144

유랜시아 책

146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45편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많았던 나흘

섹션

소개

1. 물고기를 잡아올림
2. 오후에 회당에서
3. 해 질 무렵의 치유
4. 그날 밤 이후
5. 일요일 이른 아침

소개

1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예수**와 사도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벳새다**에서 **세베대**의 집에 본부를 차렸다. 이제 **세레 요한**이 죽게 되자, **예수**께서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갓갈릴리** 전도여행을 시작하도록 준비했다. **예수**께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도시 전역에 퍼졌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나사렛**으로 서둘러 떠났다.

예수께서는, 첫 대규모 공중 전도를 시작하는 여행에 대비하도록 사도들에게 지시하면서, **세베대**의 집에서 수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을 보냈다. 그는 또한 많은 열렬한 탐구자를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만나고 가르쳤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신이 연설할 수 있도록 **안드레**를 통해서 주선했다.

금요일 밤늦게 **예수**의 막내 동생 **룻**이 은밀하게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배 안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 받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이 방문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예수**의 가족 가운데 **룻**은, 영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그의 중대한

PAPER 145

FOUR EVENTFUL DAY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raught of Fishes
2. Afternoon at the Synagogue
3. The Healing at Sundown
4. The Evening After
5. Early Sunday Morning

INTRODUCTION

145:0.1 (1628.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in Capernaum the evening of Tuesday, January 13. As usual, they made their headquarters at the home of Zebedee in Bethsaida. Now that John the Baptist had been sent to his death, Jesus prepared to launch out in the first open a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The news that Jesus had returned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city, and early the next day, Mary the mother of Jesus hastened away, going over to Nazareth to visit her son Joseph.

145:0.2 (1628.2)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Jesus spent at the Zebedee house instructing his apostles preparatory to their first extensive public preaching tour. He also received and taught many earnest inquirers, both singly and in groups. Through Andrew, he arranged to speak in the synagogue on the coming Sabbath day.

145:0.3 (1628.3) Late on Friday evening Jesus' baby sister, Ruth, secretly paid him a visit. They spent almost an hour together in a boat anchored a short distance from the shore. No human being, save John Zebedee, ever knew of this visit, and he was admonished to tell no man. Ruth was the only member of Jesus' family who consistently and

사역, 죽음, 부활, 및 상승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지상 사명의 신성함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육신으로는 가장인 **오빠**의 사명의 초자연적 특성을 죽을 때까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 세상 가족을 고려할 때, 막내 동생 **룻**은, 그의 재판, 배척, 및 십자가형이라는 벽찬 고난과정 내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됐다.

unwaveringly believed in the divinity of his earth mission from the times of her earliest spiritual consciousness right on down through his eventful ministry,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and she finally passed on to the worlds beyond never having doubted the supernatural character of her father-brother's mission in the flesh. Baby Ruth was the chief comfort of Jesus, as regards his earth family, throughout the trying ordeal of his trial, rejection, and crucifixion.

1. 물고기를 잡아올림

바로 그 주간 금요일 아침에 해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물 가까이까지 붐비게 되자, **예수**께서는 근처의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그는 배에 선 채로, 모여 있는 무리에게 두 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배로 사용했고, **예수**께서 손수 만든 것이었다. 이 특별한 날 아침에, 그 배에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과 두 동역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간밤에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 가까이 막 도착했다. **예수**께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수선하는 중이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끝낸 후에 **다윗**에게 말씀했다: "네가 나를 도우러 오느라 지체됐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한 그물 가득히 건어 올리거라." 그러나 **다윗**의 조수 가운데 하나인 **시몬**이 말했다: "**주님**,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분부대로 그물을 던져 내리기는 하겠습니다." **시몬**이 **예수**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한 것은, 그의 주인인 **다윗**이 손짓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가리킨 장소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으며,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있던 동역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그들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세 척의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은 후에,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과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굉장한 어획량{漁獲量}에 경탄했다. 그날부터, **다윗 세베대**, 이 **시몬**,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올린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원래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는데다, 노련한 어부였으므로,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생태를 잘 알았다. 이 경우, 단지 물고기가 흔히 이때에 잘 잡히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1. THE DRAUGHT OF FISHES

145:1.1 (1628.4) On Friday morning of this same week, when Jesus was teaching by the seaside, the people crowded him so near the water's edge that he signaled to some fishermen occupying a near-by boat to come to his rescue. Entering the boat, he continued to teach the assembled multitude for more than two hours. This boat was named "Simon"; it was the former fishing vessel of Simon Peter and had been built by Jesus' own hands. On this particular morning the boat was being used by David Zebedee and two associates, who had just come in near shore from a fruitless night of fishing on the lake. They were cleaning and mending their nets when Jesus requested them to come to his assistance.

145:1.2 (1628.5) After Jesus had finished teaching the people, he said to David: "As you were delayed by coming to my help, now let me work with you. Let us go fishing; put out into yonder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draught." But Simon, one of David's assistants, answered: "Master, it is useless.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however, at your bidding we will put out and let down the nets." And Simon consented to follow Jesus' directions because of a gesture made by his master, David. When they had proceeded to the place designated by Jesus, they let down their nets and enclosed such a multitude of fish that they feared the nets would break, so much so that they signaled to their associates on the shore to come to their assistance. When they had filled all three boats with fish, almost to sinking, this Simon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Master, for I am a sinful man." Simon and all who were concerned in this episode were amazed at the draught of fishes. From that day David Zebedee, this Simon, and their associates forsook their nets and followed Jesus.

145:1.3 (1629.1) But this was in no sense a miraculous draught of fishes. Jesus was a close student of nature; he was an experienced fisherman and knew the habits of the fish in the Sea of Galilee. On this occasion he merely directed these men to the place where the fish were usually to be found at this time of day. But Jesus' followers always regarded this as a

miracle.

2. 오후에 회당에서

회당의 그다음 **안식일** 오후 예배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천국”**에 관해서 설교했다. 회당의 목요일 밤 모임에서는 **안드레**가 가르쳤는데, 그의 주제는 **“새로운 길”**이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관습에 따라 첫 본문(本文)을 율법서에서 택했고, **출애굽기**부터 읽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신 **주**(主)를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병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는 둘째 본문을 **선지서**에서 택하고, **이사야**에서부터 읽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네게 임했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민족을 가리겠지만, **주의** 영이 네게 임하실 것이며, 신성한 영광이 네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방인도 이 빛으로 나아오며, 위대한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빛의 광명 아래 굴복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종교가 **개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려고 노력했다.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너희가 잘 알듯이, 마음이 자상한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한 무리로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식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한 집단으로서, 너희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지만, 개인으로서 너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계시하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져오고, 그분의 사랑 및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개별 신자에게 순수한 개인 체험으로 주기 위해서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진리, 즉 다수의 후기 선지자 역시 파악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곧 너희 각자를--개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너희는 민족이나 종족의 종교를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개인적 종교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관념은 아니다. 너희 중에서 영적으로 사려깊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은, 일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때에는 아비

2. AFTERNOON AT THE SYNAGOGUE

145:2.1 (1629.2) The next Sabbath, at the afternoon service in the synagogue, Jesus preached his sermon on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In the morning Simon Peter had preached on “The Kingdom.” At the Thursday evening meeting of the synagogue Andrew had taught, his subject being “The New Way.” At this particular time more people believed in Jesus in Capernaum than in any other one city on earth.

145:2.2 (1629.3) As Jesus taught in the synagogue this Sabbath afternoon, according to custom he took the first text from the law,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And you shall serve the Lord, your God, and he shall bless your bread and your water, and all sickness shall be taken away from you.” He chose the second text from the Prophets, reading from Isaiah: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Darkness may cover the earth and gross darkness the people, but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arise upon you, and the divine glory shall be seen with you. Even the gentiles shall come to this light, and many great minds shall surrender to the brightness of this light.”

145:2.3 (1629.4) This sermon was an effort on Jesus' part to make clear the fact that religion is a *personal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the Master said:

145:2.4 (1629.5) “You well know that, while a kindhearted father loves his family as a whole, he so regards them as a group because of his strong affection for each individual member of that family. No longer must you approach the Father in heaven as a child of Israel but as a child of God. As a group, you are indeed the children of Israel, but as individuals, each one of you is a child of God. I have come, not to reveal the Father to the children of Israel, but rather to bring this knowledge of God and the revelation of his love and mercy to the individual believer as a genuine personal experience. The prophets have all taught you that Yahweh cares for his people, that God loves Israel. But I have come among you to proclaim a greater truth, one which many of the later prophets also grasped, that God loves you — every one of you — as individuals. All these generations have you had a national or racial religion; now have I come to give you a personal religion.

145:2.5 (1630.1) “But even this is not a new idea. Many of the spiritually minded among you have known this truth, inasmuch as some of the prophets have so instructed you.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the Prophet Jeremiah says: ‘In

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각자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내가 내 민족과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날에 그들이 다시는 이웃에게, 내가 **주**를 아느냐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약속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못하느냐? 선지자들의 말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이뤄졌음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마음의 문제로 만들라고, 즉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개인으로서 관련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더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개인의 심성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는, 인간의 선천적 심성이 모든 것을 속이는 성향이 있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경우가 자주 있다고 경고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또한, 종교가 너희 개인 체험에서 실체가 돼야 한다고, **에스겔**이 너희 조상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조상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다시피, 모든 혼이 다 내 것임을 명심하며; 아버지의 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혼도 내게 속했다. 죄를 범하는 혼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 오늘날까지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심성도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죄로 인해 민족을 벌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깊은 자녀들을 민족의 죄로 인해 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가족에 소속된 개인들은, 가족의 잘못이나 집단의 위반으로 생기는 물질적 결과로 흔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국가--혹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인의 향상과 깨우침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이런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자녀가 **낙원**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하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했는데, 이 생애는 **창조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기를 추구하는, 내주하는 영의 신성한 갈망에 피조물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 설교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천국 복음이 민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좀 더 충분히 깨달았다.

those days they shall no more say,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Every man shall die for his own iniquity; every man who eats sour grapes, his teeth shall be set on edge. Behold, the days shall come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my people,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which I made with their fathe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but according to the new way. I will even write my law i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In that day they shall not say, one man to his neighbor, do you know the Lord? Nay! For they shall all know me personally,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145:2.6 (1630.2) "Have you not read these promises? Do you not believe the Scriptures? Do you not understand that the prophet's words are fulfilled in what you behold this very day? And did not Jeremiah exhort you to make religion an affair of the heart, to relate yourselves to God as individuals? Did not the prophet tell you that the God of heaven would search your individual hearts? And were you not warned that the natural human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oftentimes desperately wicked?

145:2.7 (1630.3) "Have you not read also where Ezekiel taught even your fathers that religion must become a reality in your individual experiences? No more shall you use the proverb which says,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As I live,' says the Lord God, 'behold all souls are mine; as the soul of the father, so also the soul of the son. Only the soul that sins shall die.' And then Ezekiel foresaw even this day when he spoke in behalf of God, saying: 'A new heart also will I give you, and a new spirit will I put within you.'

145:2.8 (1630.4) "No more should you fear that God will punish a nation for the sin of an individual; neither will the Father in heaven punish one of his believing children for the sins of a nation, albeit the individual member of any family must often suffer the material consequences of family mistakes and group transgressions. Do you not realize that the hope of a better nation — or a better world — is bound up in the progress and enlightenment of the individual?"

145:2.9 (1630.5) Then the Master portrayed that the Father in heaven, after man discerns this spiritual freedom, wills that his children on earth should begin that eternal ascent of the Paradise career which consists in the creature's conscious response to the divine urge of the indwelling spirit to find the Creator, to know God and to seek to become like him.

145:2.10 (1630.6) The apostles were greatly helped by this sermon. All of them realized more fully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a message directed to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음에도, 이 **안식일** 설교에 놀랐다. 그는 진정으로,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처럼 가르쳤다.

예수께서 말씀을 막 마쳤을 때,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젊은이가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동요돼서 격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내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경련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면서, 그는 꿈꾸는 상태로 말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젊은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했다--그리고 그가 즉시 깨어났다.

이 젊은이는 더러운 영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난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배워왔다. 그는 자기 병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런 가르침을 믿고 또한 그에 따라 행동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현상은 더러운 영 존재 때문에 직접 생긴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때 그의 간질병을 낫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람은 해가 진 후에 그날 늦게까지 실제로 치유되지 않았다.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소위 “마귀들을 쫓아내는” 이 행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오순절**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

이 평범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께서 회당에서 오후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했다는 보고가 **가버나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 놀라운 소문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퍼져 나가기에는 **안식일**이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주위의 모든 작은 마을에도 전달됐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본부로 삼았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과 집안일은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거의 다 맡아왔다. **베드로**의 집이 **세베대**의 집과 가까웠으며; **예수**와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들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며칠 동안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 아픈 여자를 굽어보면서 그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로와 용기의 말을 몇 마디 했을 때, 우연히 그 여자에게서 열병이 떠났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사도들에게 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으며; 그 사건이 그렇게 생생하고 선명하게

the individual, not to the nation.

145:2.11 (1630.7) Even though the people of Capernaum were familiar with Jesus' teaching, they were astonished at his sermon on this Sabbath day. He taught, indeed,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145:2.12 (1630.8) Just as Jesus finished speaking, a young man in the congregation who had been much agitated by his words was seized with a violent epileptic attack and loudly cried out. At the end of the seizure, when recovering consciousness, he spoke in a dreamy state, saying: "What have we to do with you, Jesus of Nazareth? You are the holy one of God; have you come to destroy us?" Jesus bade the people be quiet and, taking the young man by the hand, said, "Come out of it" — and he was immediately awakened.

145:2.13 (1631.1) This young man was not possessed of an unclean spirit or demon; he was a victim of ordinary epilepsy. But he had been taught that his affliction was due to possession by an evil spirit. He believed this teaching and behaved accordingly in all that he thought or said concerning his ailment. The people all believed that such phenomena were directly caused by the presence of unclean spirits. Accordingly they believed that Jesus had cast a demon out of this man. But Jesus did not at that time cure his epilepsy. Not until later on that day, after sundown, was this man really healed. Long after the day of Pentecost the Apostle John, who was the last to write of Jesus' doings, avoided all reference to these so-called acts of "casting out devils," and this he did in view of the fact that such cases of demon possession never occurred after Pentecost.

145:2.14 (1631.2) As a result of this commonplace incident the report was rapidly spread through Capernaum that Jesus had cast a demon out of a man and miraculously healed him in the synagogue at the conclusion of his afternoon sermon. The Sabbath was just the time for the rapid and effective spreading of such a startling rumor. This report was also carried to all the smaller settlements around Capernaum,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it.

145:2.15 (1631.3) The cooking and the housework at the large Zebedee home, where Jesus and the twelve made their headquarters, was for the most part done by Simon Peter's wife and her mother. Peter's home was near that of Zebedee; and Jesus and his friends stopped there on the way from the synagogue because Peter's wife's mother had for several days been sick with chills and fever. Now it chanced that, at about the time Jesus stood over this sick woman, holding her hand, smoothing her brow, and speaking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the fever left her. Jesus had not yet had time to explain to his

그들의 정신에 간직돼 있는데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회상되어, 그들은 이 우연한 사건을 또 다른 기적으로 여겼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서 도시 전역에 이 소식을 퍼뜨렸다.

베드로의 장모 **아마씨**는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장모는 **예수**로 인해 기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몇 시간 지난 후 해 질 무렵이 돼서야, **세베대**의 집 정원 앞에서 일어난 굉장한 사건과 관련되어 그 치유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경이로움을 구하는 세대와 기적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이 **예수**로 인해 이뤄졌다고 선전하기 위한 구실로, 그런 우연한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붙잡는 전형적 태도다.

3. 해 질 무렵의 치유

이 뜻 깊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예수**와 사도들이 저녁식사하려고 준비할 때, **가버나움** 전체와 그 주변은 이런 기적적인 치유 소문으로 떠들썩했으며; 해가 지자마자, 병들거나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로 가거나,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가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대** 가르침에 의하면, 신성시되는 **안식일**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가 지평선에서 사라지자마자, 고난당하는 많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이웃 집 뒤편으로 넘어가자마자, 몸이 마비된 딸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난 사건이, 이 해질 무렵의 굉장한 장면을 연출할 무대 장치를 완료해 놓았다. **예수**께서 오후 설교에서 인용했던 본문조차,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그는 전례 없던 그런 식의 권능과 권위를 갖고 말씀했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박력이 넘쳤던가! 그가 인간적 권세에는 아무런 호소를 하지 않은 반면, 사람의 의식과 혼에 대고 직접 이야기했다. 그는 논리나 율법의 논쟁, 또는 제치 있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청중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직접,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호소했다.

그 **안식일**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즉 한 우주의 생애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전체 지방우주에게, 이 작은 **유대인** 도시인 **가버나움**이 사실상 **네바돈**의 실제 수도였다. “증오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며; 복수는 비겁함의 가면이라”고 했던, **예수**의 설교의 감격적 결론을 듣고 있던 자들은 **가**

apostles that no miracle had been wrought at the synagogue; and with this incident so fresh and vivid in their minds, and recalling the water and the wine at Cana, they seized upon this coincidence as another miracle, and some of them rushed out to spread the news abroad throughout the city.

145:2.16 (1631.4) Amatha, Peter's mother-in-law, was suffering from malarial fever. She was not miraculously healed by Jesus at this time. Not until several hours later, after sundown, was her cure effected in connection with the extraordinary event which occurred in the front yard of the Zebedee home.

145:2.17 (1631.5) And these cases are typical of the manner in which a wonder-seeking generation and a miracle-minded people unfailingly seized upon all such coincidences as the pretext for proclaiming that another miracle had been wrought by Jesus.

3. THE HEALING AT SUNDOWN

145:3.1 (1631.6) By the time Jesus and his apostles had made ready to partake of their evening meal near the end of this eventful Sabbath day, all Capernaum and its environs were agog over these reputed miracles of healing; and all who were sick or afflicted began preparations to go to Jesus or to have themselves carried there by their friends just as soon as the sun went down. According to Jewish teaching it was not permissible even to go in quest of health during the sacred hours of the Sabbath.

145:3.2 (1632.1) Therefore, as soon as the sun sank beneath the horizon, scores of afflicted men, women, and children began to make their way toward the Zebedee home in Bethsaida. One man started out with his paralyzed daughter just as soon as the sun sank behind his neighbor's house.

145:3.3 (1632.2) The whole day's events had set the stage for this extraordinary sundown scene. Even the text Jesus had used for his afternoon sermon had intimated that sickness should be banished; and he had spoken with such unprecedented power and authority! His message was so compelling! While he made no appeal to human authority, he did speak directly to the consciences and souls of men. Though he did not resort to logic, legal quibbles, or clever sayings, he did make a powerful, direct, clear, and personal appeal to the hearts of his hearers.

145:3.4 (1632.3) That Sabbath was a great day in the earth life of Jesus, yes, in the life of a universe. To all local universe intents and purposes the little Jewish city of Capernaum was the real capital of Nebadon. The handful of Jews in the Capernaum synagogue were not the only beings to hear that

버나움 회당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만이 아니었다. 또한 청중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그의 복된 말씀도 잊을 수 없었다.

해가 진 직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을 때, **베드로**의 아내는 앞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큰 무리의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봤고, **가버나움**에서 오는 길이, **예수**께 치유를 받으러 오는 자들로 붐비고 있음을 보게 됐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아내는 바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예수**께 알렸다.

주님이 **세베대의** 집 앞으로 나갔을 때,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아프고 병약한 인간을 바라봤으며; 적어도 그것이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숫자였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이가 고난당하는 자는 아니었으며; 그 중에는, 치유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러 온 자들도 있었다.

자신이 신임했던, 우주 경영진에 속하는 **아들**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해 크게 고생하는 이런 고난당하는 필사자들, 남녀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심성에 특별히 와닿았으며, 이 자애로운 **창조주 아들**이 가진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경이로움의 기반 위에는, 자신의 지속적인 영적 운동을 결코 세울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 이후로,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은 그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고통 받는 이 무리가 그의 동정심을 움직였고, 이해심 많은 애정에 강하게 호소했다.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대한 스라빔 수행원들, 물리 통제관들, **생명 운반자**들, 그리고 중도자들이, **주권자**의 신호에 대비해 창조적 권능을 행사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들은 한 우주의 이 육신화된 **창조주**와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적 동정심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 너무나 맞물려 있어서, 이 일을 **아버지** 뜻에 호소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기를 원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의 도와 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계시하고 그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내 헌신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momentous closing statement of Jesus’ sermon: “Hate is the shadow of fear; revenge the mask of cowardice.” Neither could his hearers forget his blessed words, declaring, “Man is the son of God, not a child of the devil.”

145:3.5 (1632:4) Soon after the setting of the sun, as Jesus and the apostles still lingered about the supper table, Peter’s wife heard voices in the front yard and, on going to the door, saw a large company of sick folks assembling, and that the road from Capernaum was crowded by those who were on their way to seek healing at Jesus’ hands. On seeing this sight, she went at once and informed her husband, who told Jesus.

145:3.6 (1632:5) When the Master stepped out of the front entrance of Zebedee’s house, his eyes met an array of stricken and afflicted humanity. He gazed upon almost one thousand sick and ailing human beings; at least that was the number of persons gathered together before him. Not all present were afflicted; some had come assisting their loved ones in this effort to secure healing.

145:3.7 (1632:6) The sight of these afflicted mortals, men, women, and children, suffering in large measure as a result of the mistakes and misdeeds of his own trusted Sons of universe administration, peculiarly touched the human heart of Jesus and challenged the divine mercy of this benevolent Creator Son. But Jesus well knew he could never build an enduring spiritual movement upon the foundation of purely material wonders. It had been his consistent policy to refrain from exhibiting his creator prerogatives. Not since Cana had the supernatural or miraculous attended his teaching; still, this afflicted multitude touched his sympathetic heart and mightily appealed to his understanding affection.

145:3.8 (1632:7) A voice from the front yard exclaimed: “Master, speak the word, restore our health, heal our diseases, and save our souls.” No sooner had these words been uttered than a vast retinue of seraphim, physical controllers, Life Carriers, and midways, such as always attended this incarnated Creator of a universe, made themselves ready to act with creative power should their Sovereign give the signal. This was one of those moments in the earth career of Jesus in which divine wisdom and human compassion were so interlocked in the judgment of the Son of Man that he sought refuge in appeal to his Father’s will.

145:3.9 (1632:8) When Peter implored the Master to heed their cry for help, Jesus, looking down upon the afflicted throng, answered: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reveal the Father and establish his kingdom. For this purpose have I lived my life to this hour. If, therefore, it should be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not inconsistent with my dedication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나는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그리고--" 그러나 **예수**의 그다음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런 치유를 결정하는 책임을 **아버지**의 판단에 맡겼다. **아버지** 뜻은 명백하게 어떤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의 **인격화된 사고 조율사**의 명령에 따라서 봉사하는 천상{天上}의 인격체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이, 고난당하는 잡다한 필사자 군중 한가운데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면서, 모든 육체적 질병 및 다른 물질적 장애가 완전히 치유됐다. 그런 광경은 이 세상에서 그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 없었으며, 그 후로도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치유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감격적인 장관{壯觀}이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 치유 때문에 놀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랜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적 관심과 동정심이, 자기 앞에 펼쳐있는 고통과 고난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환경 아래서는,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특권 가운데 시간 요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인격화된 조율사**의 경고를, 그의 인간 정신이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고통 받는 필사자들을 온전케 해주고 싶었다.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당시의 그런 창조적 에너지 행위가 **낙원 아버지**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결정으로 --치유하고 싶은 소망을 **예수**께서 조금 전에 표현한 것을 고려해서-- 창조적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주 아들**이 바라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생애 내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필사자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기대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벧새다**에서 해질 무렵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지방** 전역은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퍼졌다. **헤롯**이 한 번 더 두려워하게 되어, **예수**의 일과 가르침에 대해 보고하도록, 그리고 그가 과연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지, 아니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살펴보도록 염탐꾼을 파견했다.

예수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육체적 치유가 주요 원인이 되어, 그 후의 나머지 지상{地上} 생애 내내 설교자 뿐 아니라 의사 역할도 맡게 됐다. 그가 가르침을 계속 한 것이 사실이지만, 몸소한 일은, 병들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사도들이 대중에게 설교하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kingdom of heaven, I would desire to see my children made whole — and — “ but the further words of Jesus were lost in the tumult.

145:3.10 (1633.1) Jesus had passed the responsibility of this healing decision to the ruling of his Father. Evidently the Father's will interposed no objection, for the words of the Master had scarcely been uttered when the assembly of celestial personalities serving under the command of Jesus'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 was mightily astir. The vast retinue descended into the midst of this motley throng of afflicted mortals, and in a moment of time 683 men, women, and children were made whole, were perfectly healed of all their physical diseases and other material disorders. Such a scene was never witnessed on earth before that day, nor since. And for those of us who were present to behold this creative wave of healing, it was indeed a thrilling spectacle.

145:3.11 (1633.2) But of all the beings who were astonished at this sudden and unexpected outbreak of supernatural healing, Jesus was the most surprised. In a moment when his human interests and sympathies were focused upon the scene of suffering and affliction there spread out before him, he neglected to bear in his human mind the admonitory warnings of his Personalized Adjuster regarding the impossibility of limiting the time element of the creator prerogatives of a Creator Son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Jesus desired to see these suffering mortals made whole if his Father's will would not thereby be violated.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instantly ruled that such an act of creative energy at that time would not transgress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and by such a decision — in view of Jesus' preceding expression of healing desire — the creative act was. What a *Creator Son* desires and his Father wills IS. Not in all of Jesus' subsequent earth life did another such en masse physical healing of mortals take place.

145:3.12 (1633.3) As might have been expected, the fame of this sundown healing at Bethsaida in Capernaum spread throughout all Galilee and Judea and to the regions beyond. Once more were the fears of Herod aroused, and he sent watchers to report on the work and teachings of Jesus and to ascertain if he was the former carpenter of Nazareth or John the Baptist risen from the dead.

145:3.13 (1633.4) Chiefly because of this unintended demonstration of physical healing, henceforth,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Jesus became as much a physician as a preacher. True, he continued his teaching, but his personal work consisted mostly in ministering to the sick and the distressed, while his apostles did the work of public preaching and baptizing

그러나 이날 해질 무렵에, 신성한 에너지로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육체적 치유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 굉장한 자비의 현시 덕택으로 영원한 영적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이 물리적 사역을 통해 진정으로 교화{敎化}했으나,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치유의 이런 놀라운 돌발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가슴속에 영적 천국이 촉진되지는 않았다.

치유 기적이 **예수**의 이 세상 사역에서 수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거의 무제한의 창조자 특권을 가진 신성한 존재가 이 세상에 거주함으로써, 전례 없는 신성한 자비와 인간적 동정심이 연합됨으로 인해,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소위 그 기적들은, 편견을 낳는 광고 효과와, 원치 않는 나쁜 평판을 많이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예수**께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4. 그날 밤 이후

이 굉장한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내내, 기쁨에 차고 행복한 군중이 **세베대**의 집을 가득 메웠고, **예수**의 사도들은 감정적 열광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그들이 **예수**와 교제한 모든 중요한 날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위대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이 그렇게 확실한 기대감으로 물결친 적은 그 전이나 후에도 없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리고 그들이 아직 **사마리아**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천국이 권능을 갖고 선포될 때가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으며, 그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됐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치유 능력의 징후가 바로 그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전율했다. **예수**에 대해 그들이 품었던 의심이 삽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황홀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각종 병에서 치유 받은 이 남녀 어른과 아이들은, **예수**께 감사를 표하려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사도들은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 은둔하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가 계속 자리를 비우지만 앉았다면,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전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치유되는 혜택을 입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돌아간 후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나려고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과 열두 사도의 축하와 예찬을 거절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혼을 구원하

believers.

145:3.14 (1633.5) But the majority of those who were recipients of supernatural or creative physical healing at this sundown demonstration of divine energy were not permanently spiritually benefited by this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mercy. A small number were truly edified by this physical ministry, but the spiritual kingdom was not advanced in the hearts of men by this amazing eruption of timeless creative healing.

145:3.15 (1633.6) The healing wonders which every now and then attended Jesus' mission on earth were not a part of his plan of proclaiming the kingdom. They were incidentally inherent in having on earth a divine being of well-nigh unlimited creator prerogatives in association with an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divine mercy and human sympathy. But such so-called miracles gave Jesus much trouble in that they provided prejudice-raising publicity and afforded much unsought notoriety.

4. THE EVENING AFTER

145:4.1 (1634.1) Throughout the evening following this great outburst of healing, the rejoicing and happy throng overran Zebedee's home, and the apostles of Jesus were keyed up to the highest pitch of emotional enthusiasm. From a human standpoint, this was probably the greatest day of all the great days of their association with Jesus. At no time before or after did their hopes surge to such heights of confident expectation. Jesus had told them only a few days before, and when they were yet within the borders of Samaria, that the hour had come when the kingdom was to be proclaimed in *power*, and now their eyes had seen what they supposed was the fulfillment of that promise. They were thrilled by the vision of what was to come if this amazing manifestation of healing power was just the beginning. Their lingering doubts of Jesus' divinity were banished. They were literally intoxicated with the ecstasy of their bewildered enchantment.

145:4.2 (1634.2) But when they sought for Jesus, they could not find him. The Master was much perturbed by what had happened. These men,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healed of diverse diseases lingered late into the evening, hoping for Jesus' return that they might thank him. The apostles could not understand the Master's conduct as the hours passed and he remained in seclusion; their joy would have been full and perfect but for his continued absence. When Jesus did return to their midst, the hour was late, and practically all of the beneficiaries of the healing episode had gone to their homes. Jesus refused the congratulations and adoration of the twelve and the others who had lingered to greet him, only

시는 권능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을 위해 가서 쉬도록 하자”고 말씀할 뿐이었다.

열두 사도는 다시 한 번 실망했고, 당황했으며, 비통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그들 모두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무섭게, 다시 곧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그들의 용기와 열성의 기반을 전부 뒤엎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런 혼란된 어부들은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생각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5.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도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세상이 육신적 고뇌로 가득 차있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넘쳐 있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병자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영적 천국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또는 적어도 육신의 일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위협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숙고했다. 그날 밤 동안, **예수**의 인간 정신에는 이런 생각 그리고 비슷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날이 새기 훨씬 전인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이 즐겨 찾는, **아버지**와 친교하는 장소로 혼자 갔다.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필사자의 고통 앞에서 영향 받아 자신의 인간적 동정심과 신성한 자비가 연결되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물리적 사역에 전념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자들 돌보기를 완전히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적 훈련이라는 더 중요한 일도 해야만 함을 알았다.

예수께서 언덕으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러 갔던 것은, 개인적 헌신을 하기에 적당한 사적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 기도하러 떠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깨워서 함께 **주님**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한 시간 이상 찾아 헤멘 후에 **예수**를 발견했고,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기쁨에 넘치고 사도들이 그토록 즐거워할 때, 치유의 영의 강력한 임제로 말미암아 그가 왜 고심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세 사도에게 설명하려고 네 시간 넘게 애썼다. **예수**께서

saying: “Rejoice not that my Father is powerful to heal the body, but rather that he is mighty to save the soul. Let us go to our rest, for tomorrow we must be about the Father’s business.”

145:4.3 (1634.3) And again did twelve disappointed, perplexed, and heart-sorrowing men go to their rest; few of them, except the twins, slept much that night. No sooner would the Master do something to cheer the souls and gladden the hearts of his apostles, than he seemed immediately to dash their hopes in pieces and utterly to demolish the foundations of their courage and enthusiasm. As these bewildered fishermen looked into each other’s eyes, there was but one thought: “We cannot understand him. What does all this mean?”

5. EARLY SUNDAY MORNING

145:5.1 (1634.4) Neither did Jesus sleep much that Saturday night. He realized that the world was filled with physical distress and overrun with material difficulties, and he contemplated the great danger of being compelled to devote so much of his time to the care of the sick and afflicted that his mission of establishing the spiritual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would be interfered with or at least subordinated to the ministry of things physical. Because of these and similar thoughts which occupied the mortal mind of Jesus during the night, he arose that Sunday morning long before daybreak and went all alone to one of his favorite places for communion with the Father. The theme of Jesus’ prayer on this early morning was for wisdom and judgment that he might not allow his human sympathy, joined with his divine mercy, to make such an appeal to him in the presence of mortal suffering that all of his time would be occupied with physical ministry to the neglect of the spiritual. Though he did not wish altogether to avoid ministering to the sick, he knew that he must also do the more important work of spiritual teaching and religious training.

145:5.2 (1635.1) Jesus went out in the hills to pray so many times because there were no private rooms suitable for his personal devotions.

145:5.3 (1635.2) Peter could not sleep that night; so, very early, shortly after Jesus had gone out to pray, he aroused James and John, and the three went to find their Master. After more than an hour’s search they found Jesus and besought him to tell them the reason for his strange conduct. They desired to know why he appeared to be troubled by the mighty outpouring of the spirit of healing when all the people were overjoyed and his apostles so much rejoiced.

145:5.4 (1635.3) For more than four hours Jesus endeavored to explain to these three apostles what

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징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러 온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 줬다. **아버지** 나라가 왜 기적_행함이나 육체적 치유 위에 세워질 수 없는지, 개인 동역자들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 무리와 호기심에 찬 많은 사람이, 일요일 아침 일찍 **세베대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무척 당황했고, **열심당 시몬**이 군중에게 말하는 동안, **안드레**와 몇 명의 동역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다. **안드레**는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자: “**주님**, 왜 우리만 무리와 함께 있도록 내버려두십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인해, 가깝고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지금도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러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대답했다: “**안드레**야,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내 메시지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일을 버리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 그리고 표적과 경이로움을 찾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제까지 여러 달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더냐? 그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찾아 왔단 말이나? 그것은 그들이 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물리적 육체의 치유 때문이 아니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나아올 때, 그들 가운데 다수는 진리와 구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육체적 병을 치유 받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이런 호기심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영적 사역이 배제된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사역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도록 내가 너희를 임명했지만, 나는 내 가르침을 제쳐놓고 치유하는 일에 몰두하게 돼서는 안 된다. **안드레**야,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믿고, **하** **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로 떠날 준비를 하거라, 거기에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길이 이미 준비됐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이런 목적

had happened. He taught them about what had transpired and explained the dangers of such manifestations. Jesus confided to them the reason for his coming forth to pray. He sought to make plain to his personal associates the real reasons why the kingdom of the Father could not be built upon wonder-working and physical healing.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his teaching.

145:5.5 (1635.4) Meanwhile, early Sunday morning, other crowds of afflicted souls and many curiosity seekers began to gather about the house of Zebedee. They clamored to see Jesus. Andrew and the apostles were so perplexed that, while Simon Zelotes talked to the assembly, Andrew, with several of his associates, went to find Jesus. When Andrew had located Jesus in company with the three, he said: “Master, why do you leave us alone with the multitude? Behold, all men seek you; never before have so many sought after your teaching. Even now the house is surrounded by those who have come from near and far because of your mighty works. Will you not return with us to minister to them?”

145:5.6 (1635.5) When Jesus heard this, he answered: “Andrew, have I not taught you and these others that my mission on earth i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and my message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How is it, then, that you would have me turn aside from my work for the gratification of the curious and for the satisfaction of those who seek for signs and wonders? Have we not been among these people all these months, and have they flocked in multitudes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hy have they now come to besiege us? Is it not because of the healing of their physical bodies rather than as a result of the reception of spiritual truth for the salvation of their souls? When men are attracted to us because of extraordinary manifestations, many of them come seeking not for truth and salvation but rather in quest of healing for their physical ailments and to secure deliverance from their material difficulties.

145:5.7 (1635.6) “All this time I have been in Capernaum, and both in the synagogue and by the seaside have I proclaim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to all who had ears to hear and hearts to receive the truth.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that I should return with you to cater to these curious ones and to become occupied with the ministry of things physical to the exclusion of the spiritual. I have ordained you to preach the gospel and minister to the sick, but I must not become engrossed in healing to the exclusion of my teaching. No, Andrew, I will not return with you. Go and tell the people to believe in that which we have taught them and to rejoice in the liberty of the sons of God, and make ready for our departure for the other cities of Galilee, where the way has already been prepared for the preaching of the good

을 위해서다. 자, 가서, 우리가 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동안 나는 여기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안드레**와 동료 사도들은 비탄에 잠겨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모여 있는 무리를 해산시키고, 신속하게 여행 준비를 끝냈다. 그렇게 해서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갈릴리** 도시들에서 그들의 진정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첫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첫 여행 중에 많은 도시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나사렛**에는 가지 않았다.

그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림몬**으로 떠난 직후에,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그를 만나러 **세베대**의 집으로 왔다. 그날 정오 무렵에 **유다**가 형 **야고보**를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만나러 가고 청했다. **유다**와 함께 가기로 **야고보**가 동의했을 즈음, **예수**께서는 이미 떠난 후였다.

사도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굉장한 흥미 있는 일들을 뒤에 두고 떠나기가 싫었다. **베드로**는 1,000명 이상의 신자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았다고 계산했다. **예수**께서는 참을성 있게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돌아가기는 거절했다. 침묵이 잠시 흐른 후에, **도마**가 동료 사도들에게 말했다: “가자!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대한 수수께끼들을 온전히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한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못해서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에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다.

tidings of the kingdom.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Go, then, and prepare for our immediate departure while I here await your return.”

145:5.8 (1636.1) When Jesus had spoken, Andrew and his fellow apostles sorrowfully made their way back to Zebedee's house, dismissed the assembled multitude, and quickly made ready for the journey as Jesus had directed. And so, on the afternoon of Sunday, January 18, A.D. 28, Jesus and the apostles started out upon their first really public and open preaching tour of the cities of Galilee. On this first tour they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many cities, but they did not visit Nazareth.

145:5.9 (1636.2) That Sunday afternoon, shortly after Jesus and his apostles had left for Rimmon, his brothers James and Jude came to see him, calling at Zebedee's house. About noon of that day Jude had sought out his brother James and insisted that they go to Jesus. By the time James consented to go with Jude, Jesus had already departed.

145:5.10 (1636.3) The apostles were loath to leave the great interest which had been aroused at Capernaum. Peter calculated that no less than one thousand believers could have been baptized into the kingdom. Jesus listened to them patiently, but he would not consent to return. Silence prevailed for a season, and then Thomas addressed his fellow apostles, saying: “Let's go! The Master has spoken. No matter if we cannot fully comprehend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of one thing we are certain: We follow a teacher who seeks no glory for himself.” And reluctantly they went forth to preach the good tidings in the cities of Galilee.

제 146편. 1차 갈릴리 전도여행

⇨ 145

유랜시아 책

147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46편

1차 갈릴리 전도여행

섹션

소개

1. 림몬에서 전도함
2. 요타파타에서
3. 라마에 머무름
4. 아이론에서 복음을 전함
5. 가나로 돌아옴
6.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
7. 엔돌에서

PAPER 146

FIRST PREACHING TOUR OF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Preaching at Rimmon
2. At Jotapata
3. The Stop at Ramah
4. The Gospel at Iron
5. Back in Cana
6. Nain and the Widow's Son
7. At Endor

소개

갈릴리에서 첫 대중{大衆} 전도여행은,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에 시작해서 약 두 달 간 계속됐고, 3월 17일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옴으로써 끝났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이 여행에서 **요한**의 옛 사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림몬, 요타파타, 라마, 스블론, 아이론, 기스카라, 고라신, 매돈, 가나, 나인, 엔돌**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들은 이 도시들에 머물면서 가르치는 한편, 많은 작은 도시에서는 지나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께서 동역자들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도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세 경우만 조심시켰는데; **나사렛**을 멀리하도록 경고했고, **가버나움**과 **디베라**를 지나칠 때 특히 조심하도록 경고했다. 사도들은 마침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했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에 큰 열성과 기쁨으로 헌신했다.

INTRODUCTION

146:0.1 (1637.1) THE first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began on Sunday, January 18, A.D. 28, and continued for about two months, ending with the return to Capernaum on March 17. On this tour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assisted by the former apostles of John, preached the gospel and baptized believers in Rimmon, Jotapata, Ramah, Zebulun, Iron, Gischala, Chorazin, Madon, Cana, Nain, and Endor. In these cities they tarried and taught, while in many other smaller towns they proclaim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y passed through.

146:0.2 (1637.2) This was the first time Jesus permitted his associates to preach without restraint. On this tour he cautioned them on only three occasions; he admonished them to remain away from Nazareth and to be discreet when passing through Capernaum and Tiberias. It was a source of great satisfaction to the apostles at last to feel they were at liberty to preach and teach without restriction, and they threw themselves into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ministering to the sick, and baptizing believers, with great

earnestness and joy.

1. 림몬에서 전도함

작은 도시 **림몬**은, **바벨론**의 대기{大氣}의 신{神}인 **람만**을 한때 헌신적으로 숭배했다. 옛 **바벨론**과 후일 **조로아스터**의 교훈 가운데 많은 것이, 여전히 **림몬** 사람들의 믿음에 포함돼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와 스물네 명은, 이런 옛 믿음과 천국의 새 복음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과제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베드로**는, 초기 사역에서 훌륭한 설교 가운데 하나인, “**아론과 금송아지**”에 관한 설교를 여기서 했다.

많은 **림몬** 시민이 **예수**의 교훈을 믿는 자가 됐음에도, 그들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하나의 짧은 인생 기간에, 자연 숭배자들이 영적 이상{理想}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도록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시간과 영원에 대한 **바벨론인** 및 **페르시아인**의 관념 중에서 더 나은 많은 것이, 나중에 소위 **그리스도교** 교리에 합쳐졌으며, 이것들이 포함됨으로, **근동**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교훈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후대에 **필로**가 **히브리** 신학에 맞게 조정한 바와 같이, 이상적 영, 즉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만물의 보이지 않는 원형{原型}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을 많이 포함시킨 것은,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훈을 서방 **그리스인**이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만들었다.

도단이 천국 복음을 처음 들은 곳이 **림몬**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메시지를 **메소포타미아**와 그 너머까지 전파했다. 그는 **유프라테스**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2. 요타파타에서

요타파타의 보통 사람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말을 기쁜 마음으로 들었고, 많은 이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요타파타** 전도임무에서 특별한 것은, 그들이 이 작은 도시에 머물던 둘째 날 밤에 **예수**께서 스물네 명에게 강연한 것이었다. **나다니엘**은, 기도, 감사, 및 경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마음 속에서 혼동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긴 시간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설명했다. 현대 용어로 요약하면, 이 이야기는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사람이 마음 속으로 의식하면서 죄악을 끄

1. PREACHING AT RIMMON

146:1.1 (1637.3) The small city of Rimmon had once been dedicated to the worship of a Babylonian god of the air, Ramman. Many of the earlier Babylonian and later Zoroastrian teachings were still embraced in the beliefs of the Rimmonites; therefore did Jesus and the twenty-four devote much of their time to the task of making 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older beliefs an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Peter here preached one of the great sermons of his early career on “Aaron and the Golden Calf.”

146:1.2 (1637.4) Although many of the citizens of Rimmon became believers in Jesus’ teachings, they made great trouble for their brethren in later years. It is difficult to convert nature worshipers 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adoration of a spiritual ideal during the short space of a single lifetime.

146:1.3 (1637.5) Many of the better of the Babylonian and Persian ideas of light and darkness, good and evil, time and eternity, were later incorporated in the doctrines of so-called Christianity, and their inclusion rendered the Christian teachings more immediately acceptable to the peoples of the Near East. In like manner, the inclusion of many of Plato’s theories of the ideal spirit or invisible patterns of all things visible and material, as later adapted by Philo to the Hebrew theology, made Paul’s Christian teachings more easy of acceptance by the western Greeks.

146:1.4 (1637.6) It was at Rimmon that Todan first heard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 later carried this message into Mesopotamia and far beyond. He was among the first to preach the good news to those who dwelt beyond the Euphrates.

2. AT JOTAPATA

146:2.1 (1638.1) While the common people of Jotapata heard Jesus and his apostles gladly and many accepted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was the discourse of Jesus to the twenty-four on the second evening of their sojourn in this small town that distinguishes the Jotapata mission. Nathaniel was confused in his mind about the Master’s teachings concerning prayer, thanksgiving, and worship, and in response to his question Jesus spoke at great length in further explanation of his teaching. Summarized in modern phraseology, this discourse may be presented as emphasizing the following points:

- 146:2.2 (1638.2) 1. The conscious and persistent regard for iniquity in the heart of man gradually

질기게 생각하면,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서, 인간 혼의 영적 통신 회로와 기도로 연락하는 길이 서서히 파괴된다. **하나님**은 자녀의 간구를 당연히 듣고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이 고의로 끈질기게 죄악의 개념을 품으면, 이 세상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 친교는 서서히 단절된다.

2.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도는 **낙원 신격**들에게 가증스런 것이다. 영, 정신, 및 물질 법칙에 의거하여 **하나님**들께서 자신의 창조물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오만한 행위가, 영 인격체들로 하여금 그런 불법적이고 불순종하는 필사자의 개인적 간구를 외면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스가라 선지서**에서 인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다, 그들은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영으로 보낸 율법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간악한 머리에 큰 진노가 임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외치게 됐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혜자의 속담을 인용했다: “신성한 율법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리는 자는, 자신의 기도조차 증오하게 되리라.”

3. 필사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경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 놓음으로써, 여러 세계의 피조물에게 베푸는 신성한 보살핌이라는, 항상 밀려오는 흐름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것을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런 체험에 내재돼 있다. 죄의 용서조차 틀림없이 바로 이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런 용서는, 내가 동료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는 너의 개인 종교 체험에서 효력이 없다. **사실**에서는 내가 동료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좌우되지 않지만, **체험**에서는 틀림없이 좌우된다. 이처럼 신(神)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보조를 맞춘다는 이 사실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에서 인식되고 함께 연결돼 있었다.

4. 우주에는 자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근본적인 응보의 법칙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피조물은, **낙원**의 이타적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 영원히 생존하는 구원을, 생존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유한한 피조물에게든지 강제로 줄 수 없다. 자비를 베푸는 범위는 넓지만, 결국, 사랑이 자비와 합동할지라도 효과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응보의 명령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히브리** 성서에서 인용했다: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거부했고; 내가 손을 뻗었지만 돌아보는 자가

destroys the prayer connection of the human soul with the spirit circuits of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his Maker. Naturally God hears the petition of his child, but when the human heart deliberately and persistently harbors the concepts of iniquity, there gradually ensues the loss of personal communion between the earth child and his heavenly Father.

146:2.3 (1638.3) 2. That prayer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known and established laws of God is an abomination to the Paradise Deities. If man will not listen to the Gods as they speak to their creation in the laws of spirit, mind, and matter, the very act of such deliberate and conscious disdain by the creature turns the ears of spirit personalities away from hearing the personal petitions of such lawless and disobedient mortals. Jesus quoted to his apostles from the Prophet Zechariah: “But they refused to hearken and pulled away the shoulder and stopped their ears that they should not hear. Yes, they made their hearts adamant like a stone, lest they should hear my law and the words which I sent by my spirit through the prophets; therefore did the results of their evil thinking come as a great wrath upon their guilty heads. And so it came to pass that they cried for mercy, but there was no ear open to hear.” And then Jesus quoted the proverb of the wise man who said: “He who turns away his ear from hearing the divine law, even his prayer shall be an abomination.”

146:2.4 (1638.4) 3. By opening the human end of the channel of the God-man communication, mortals make immediately available the ever-flowing stream of divine ministry to the creatures of the worlds. When man hears God's spirit speak within the human heart, inherent in such an experience is the fact that God simultaneously hears that man's prayer. Even the forgiveness of sin operates in this same unerring fashion. The Father in heaven has forgiven you even before you have thought to ask him, but such forgiveness is not available in you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until such a time as you forgive your fellow men. God's forgiveness in fact is not conditioned upon your forgiving your fellows, but in experience it is exactly so conditioned. And this fact of the synchrony of divine and human forgiveness was thus recognized and linked together in the prayer which Jesus taught the apostles.

146:2.5 (1638.5) 4. There is a basic law of justice in the universe which mercy is powerless to circumvent. The unselfish glories of Paradise are not possible of reception by a thoroughly selfish creature of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Even the infinite love of God cannot force the salvation of eternal survival upon any mortal creature who does not choose to survive. Mercy has great latitude of bestowal, but, after all, there are mandates of justice which even love combined with mercy cannot effectively abrogate. Again

없었다. 너희는 내 모든 조언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반역하는 태도로 인해,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의 길을 배척했으므로, 너희가 고통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해도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5.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너희 역시 비판 받게 될 것이다. 자비가 우주의 공정성을 전적으로 폐기하지는 못한다.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이 결국 참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어떤 기도든지 진지함이 경청을 보증하며; 어떤 간구든지,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이, 응답의 시기, 방식, 및 정도의 척도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우둔하고 미숙한 자녀의 어리석은 기도를 *문자 그대로* 들어주시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녀는 그런 우둔한 간구를 하면서 많은 기쁨과 혼의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6.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너의 모든 간구에 대한 응답이 이뤄질 것인데, 네 기도가 **아버지** 뜻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고, **아버지** 뜻은 언제나 그분의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녀가 원하고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간구든지 온전히 응답될 수 없다.

7.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은, 선, 진리, 및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창고의 문을 여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 행위이며, 이런 좋은 선물은, 자녀가 와서 자기 몫을 가져가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기도가 사람을 향한 신(神)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번치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기도하는 자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동기가 신의 귀에 도달하는 올바른 길을 제공한다.

8. 시간을 단축하거나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려고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아를 과장하거나 동료들을 능가하는 불공평한 이점을 얻기 위한 기법으로서 고안되지 않았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혼은, 진정한 의미의 말로 기도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의 최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진지한 소원을 너에게 분명히 이뤄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Jesus quoted from the Hebrew scriptures: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hear; I stretched out my hand, but no man regarded. You have set at naught all my counsel, and you have rejected my reproof, and because of this rebellious attitude it becomes inevitable that you shall call upon me and fail to receive an answer. Having rejected the way of life, you may seek me diligently in your times of suffering, but you will not find me.”

146:2.6 (1639.1) 5. They who would receive mercy must show mercy;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With the spirit with which you judge others you also shall be judged. Mercy does not wholly abrogate universe fairness. In the end it will prove true: “Whoso stops his ears to the cry of the poor, he also shall some day cry for help, and no one will hear him.” The sincerity of any prayer is the assurance of its being heard; the spiritual wisdom and universe consistency of any petition is the determiner of the time, manner, and degree of the answer. A wise father does not *literally* answer the foolish prayers of his ignorant and inexperienced children, albeit the children may derive much pleasure and real soul satisfaction from the making of such absurd petitions.

146:2.7 (1639.2) 6. When you have become wholly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 answer to all your petitions will be forthcoming because your prayers will be in full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and the Father's will is ever manifest throughout his vast universe. What the true son desires and the infinite Father wills IS. Such a prayer cannot remain unanswered, and no other sort of petition can possibly be fully answered.

146:2.8 (1639.3) 7. The cry of the righteous is the faithful act of the child of God which opens the door of the Father's storehouse of goodness, truth, and mercy, and these good gifts have long been in waiting for the son's approach and personal appropriation. Prayer does not change the divine attitude toward man, but it does change man's attitude toward the changeless Father. The *motive* of the prayer gives it right of way to the divine ear, not the social, economic, or outward religious status of the one who prays.

146:2.9 (1639.4) 8. Prayer may not be employed to avoid the delays of time or to transcend the handicaps of space. Prayer is not designed as a technique for aggrandizing self or for gaining unfair advantage over one's fellows. A thoroughly selfish soul cannot pra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Said Jesus: “Let your supreme delight be in the character of God, and he shall surely give you the sincere desires of your hear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For the Lord hears the cry of the needy, and he will regard the prayer of the destitute.”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리고 너의 진정한 필요와 소원에 따라서, 너 대신 간구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이 되려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하기를 피하고; 네 형제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고;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의 풍성한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10. 내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네 사랑과 지성적인 봉사를 네 기도가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가족, 친구, 및 동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해라. “그러나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네 안에 거하는 영{靈}이, 너를 감동시켜서, 영들의 **아버지**와 맺는 내적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간구를 입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11.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야 기도한다. 그런 습관은 경솔하고 오해하기 쉽다. 정말로, 네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또한 네 혼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뤄질 때에도,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진정한 간구는 항상 은밀히 드러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개인 기도를 듣게 하지 마라. 경배하는 자들의 집단이 감사드리시는 기도는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합한 기도 형식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다.

12.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 나라가 확장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는 **히브리** 성서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들의 간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심성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기질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은밀한 죄를 씻어 주시고, 주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중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경솔하고 불쾌감을 주는 말로 하는 기도에도 관련해 길게 언급하면서 다음 글을 인용했다: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혀는 거의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신체기관이지만, 안에 있는 영만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지체를 부드러운 아량의 목소리와 자비의 영감 어린 봉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13.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알고자하는 간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생애의 행로에 대한 신{神}의 안내를 구하는 기도라고 가르쳤다. 실제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얻으려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결코,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솜씨를 기도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신성한 영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한 요소가 기도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동역자들에게 영으로 진리 안에서

146:2.10 (1639.5) 9. “I have come forth from the Father; if, therefore, you are ever in doubt as to what you would ask of the Father, ask in my name, and I will present your petition in accordance with your real needs and desires and in accordance with my Father's will.” Guard against the great danger of becoming self-centered in your prayers. Avoid praying much for yourself; pray more for the spiritual progress of your brethren. Avoid materialistic praying; pray in the spirit and for the abundance of the gifts of the spirit.

146:2.11 (1639.6) 10. When you pray for the sick and afflicted, do not expect that your petitions will take the place of loving and intelligent ministry to the necessities of these afflicted ones. Pray for the welfare of your families, friends, and fellows, but especially pray for those who curse you, and make loving petitions for those who persecute you. “But when to pray, I will not say. Only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you may move you to the utterance of those petitions which are expressive of your inner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of spirits.”

146:2.12 (1640.1) 11. Many resort to prayer only when in trouble. Such a practice is thoughtless and misleading. True, you do well to pray when harassed, but you should also be mindful to speak as a son to your Father even when all goes well with your soul. Let your real petitions always be in secret. Do not let men hear your personal prayers. Prayers of thanksgiving are appropriate for groups of worshipers, but the prayer of the soul is a personal matter. There is but one form of prayer which is appropriate for all God's children, and that is: “Nevertheless, your will be done.”

146:2.13 (1640.2) 12. All believers in this gospel should pray sincerely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Of all the prayers of the Hebrew scriptures he commented most approvingly on the petition of the Psalmist: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Purge me from secret sins and keep back your servant from presumptuous transgression.” Jesus commented at great length on the relation of prayer to careless and offending speech, quoting: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The human tongue,” said Jesus, “is a member which few men can tame, but the spirit within can transform this unruly member into a kindly voice of tolerance and an inspiring minister of mercy.”

146:2.14 (1640.3) 13. Jesus taught that the prayer for divine guidance over the pathway of earthly life was next in importance to the petition for a knowledge of the Father's will. In reality this means a prayer for divine wisdom. Jesus never taught that human knowledge and special skill could be gained by prayer. But he did teach that prayer is a factor in the enlargement of one's capacity to receive the presence of the divine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진지하게 자신의 깨우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즉 온 마음을 다하고 지성적으로, 열심히 확고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반복, 유창한 말, 금식, 참회, 또는 희생제물이 기도를 더 효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경배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라고, 신자들에게 훈계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의 기도와 경배에서 감사하는 기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한탄했다. 그는 이 경우에 관하여 **성서**에서 글을 인용했다: “주께 감사하며, **지고자**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마다 그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밤마다 그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15.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의 평범한 필수품에 관해 계속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네가 이 세상에 실존함으로 인한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진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펼쳐놓으라.” 그리고 나서 **성서**에서 인용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16.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동안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서, 내주하는 영이, 들으려는 혼에게 말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사람의 정신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잘 말씀할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도움과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 정신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예수께서는, 경배가, 경배 받으시는 분을 사람이 점점 더 닮아가게 해준다고 가르쳤다. 경배는, 유한자가 **무한자**의 현존에 점차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께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체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친교에 관한 다른 많은 진리를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사도는 많지 않았다.

3. 라마에 머무름

예수께서는 **라마**에서 연로한 **그리스** 철학자와 기억에 남을 만한 토의를 했는데, 그 철학자는 과학과 철학만으로도 인간 체험에서 생기는 결핍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spirit. When Jesus taught his associates to pray in the spirit and in truth, he explained that he referred to praying sincerely and in accordance with one's enlightenment, to praying wholeheartedly and intelligently, earnestly and steadfastly.

146:2.15 (1640.4) 14. Jesus warned his followers against thinking that their prayers would be rendered more efficacious by ornate repetitions, eloquent phraseology, fasting, penance, or sacrifices. But he did exhort his believers to employ prayer as a means of leading up through thanksgiving to true worship. Jesus deplored that so little of the spirit of thanksgiving was to be found in the prayers and worship of his followers. He quoted from the Scriptures on this occasion, saying: “It is a good thing to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s to the name of the Most High, to acknowledge his loving-kindness every morning and his faithfulness every night, for God has made me glad through his work. In everything I will give thank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146:2.16 (1640.5) 15. And then Jesus said: “Be not constantly overanxious about your common needs. Be not apprehensive concerning the problems of your earthly existence, but in all these things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e spirit of sincere thanksgiving, let your needs be spread out before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en he quoted from the Scriptures: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with a song and will magnify him with thanksgiving. And this will please the Lord better than the sacrifice of an ox or bullock with horns and hoofs.”

146:2.17 (1641.1) 16. Jesus taught his followers that, when they had made their prayers to the Father, they should remain for a time in silent receptivity to afford the indwelling spirit the better opportunity to speak to the listening soul. The spirit of the Father speaks best to man when the human mind is in an attitude of true worship. We worship God by the aid of the Father's indwelling spirit and by the illumination of the human mind through the ministry of truth. Worship, taught Jesus, makes one increasingly like the being who is worshiped. Worship is a transforming experience whereby the finite gradually approaches and ultimately attains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146:2.18 (1641.2) And many other truths did Jesus tell his apostles about man's communion with God, but not many of them could fully encompass his teaching.

3. THE STOP AT RAMAH

146:3.1 (1641.3) At Ramah Jesus had the memorable discussion with the aged Greek philosopher who taught that science and philosophy were sufficient to satisfy the needs of human experience. Jesus

는 인내심과 동정심을 갖고 이 그리스 선생의 말을 들었으며, 그가 말한 많은 것이 진리임을 인정했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인간 실존에 대해 토의할 때, “어떻게, 왜, 어디로”를 설명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점만 지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끝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종교는, 정신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거나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실체를 다루는, 사람의 혼에 대한 계시다. 지적 갈망이 생명에 관한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천국 복음은 존재에 관한 진리를 밝혀준다. 너는 진리의 물질적 그림자를 언급했는데; 이제 나는, 필사자 실존의 물질적 사실이라는 이런 일시적 시간 그림자를 벗어버린, 영원하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 말하려는데, 들어보겠느냐?” 예수께서 이 그리스인에게 천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를 한 시간 이상 가르쳤다. 연로한 철학자는 주님의 접근 방법을 쉽게 따라 왔고, 진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빨리 믿었다.

사도들은 그리스인의 많은 주장에 공공연히 찬성하는 예수의 태도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했다: “얘들아, 내가 그리스인의 철학에 관용을 베푸는 것에 놀라지 마라. 참되고 순수한 내적 확신은 외적 분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는 정직한 비판에 화내지 않는다. 편협함은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은밀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가면임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가 항상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그것의 진리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웃의 태도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용기는 그가 믿는다고 내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철저히 정직한 자신감이다. 진지한 사람은, 자신의 참된 신념과 고상한 이상{理想}을 비판적인 눈으로 따져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마에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가르침을 새로 믿는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의 진리에 관해 진정으로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서 가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서 영원히 생존할 것에 대한 너희의 확신은, 전적으로 너희의 개인 체험--곧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문제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들을 너희가 몸소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동등하며, 달리 말하면, 진리인 실체들을 너희가 지능으로 이해함에 너희의 영적 신앙을 더하고, 거기서 너희의 숨김없는 의심을 뺀 것과 같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선천적으로 부여받는다.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부여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살아 있는 영, 즉 영생의 선물을 지닌 신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신 세계에서 인생이 끝난 뒤에 생

listened with patience and sympathy to this Greek teacher, allowing the truth of many things he said but pointing out that, when he was through, he had failed in his discussion of human existence to explain “whence, why, and whither,” and added: “Where you leave off, we begin. Religion is a revelation to man’s soul dealing with spiritual realities which the mind alone could never discover or fully fathom. Intellectual strivings may reveal the facts of life, but the gospel of the kingdom unfolds the truths of being. You have discussed the material shadows of truth; will you now listen while I tell you about the eternal and spiritual realities which cast these transient time shadows of the material facts of mortal existence?” For more than an hour Jesus taught this Greek the sav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old philosopher was susceptible to the Master’s mode of approach, and being sincerely honest of heart, he quickly believed this gospel of salvation.

146:3.2 (1641.4) The apostles were a bit disconcerted by the open manner of Jesus’ assent to many of the Greek’s propositions, but Jesus afterward privately said to them: “My children, marvel not that I was tolerant of the Greek’s philosophy. True and genuine inward certainty does not in the least fear outward analysis, nor does truth resent honest criticism. You should never forget that intolerance is the mask covering up the entertainment of secret doubts as to the trueness of one’s belief. No man is at any time disturbed by his neighbor’s attitude when he has perfect confidence in the truth of that which he wholeheartedly believes. Courage is the confidence of thoroughgoing honesty about those things which one professes to believe. Sincere men are unafraid of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ir true convictions and noble ideals.”

146:3.3 (1641.5) On the second evening at Ramah, Thomas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how can a new believer in your teaching really know, really be certain, about the truth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146:3.4 (1641.6) And Jesus said to Thomas: “Your assurance that you have entered into the kingdom family of the Father, and that you will eternally survive with the children of the kingdom, is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 faith in the word of truth. Spiritual assurance is the equivalent of you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the eternal realities of divine truth and is otherwise equal to your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truth realities plus your spiritual faith and minus your honest doubts.

146:3.5 (1642.1) “The Son is naturally endowed with the life of the Father. Having been endowed with the living spirit of the Father, you are therefore sons of God. You survive your life in the material world of the flesh because you are identified with

존한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전에도 이런 삶을 살아 왔는데, 이제 내 말을 믿음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을 받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정신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한 영을 볼 수 없지만, 혼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얼마나 맡겼는지, 그 정도(程度)를 알아보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정도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가지며, 이 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신성한 경배의 방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방향으로 어김없이 인도한다. 처음에는 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내주하는 현존으로서 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더욱 의식하게 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어질 것이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처럼, 그 영이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너희 혼의 영적 재능을 대변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영은 반드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현존, 즉 너희의 영을 증거 할 것이며, 그다음에는, 지금 몇 사람 안에 거하듯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 난 자녀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내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생애로부터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길이 있고, 항상 있어 왔으며, 그 길을 새롭게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너희가 더 잘 이해할 것이며, 현재의 체험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크게 기뻐했다. 의로운 자들의 생존에 관한 **유대인**의 교훈은 뒤죽박죽이고 불확실했으며, 모든 참된 신자가 영원히 생존한다고 확신을 주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새 힘을 얻고 영감을 받았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의기소침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사도마다 각각 **요한**의 사도 한 사람씩 동역자로 동반하면서 사도 조직이 확장됐으며; **아브넬**은 **안드레**의 동역자로서 일했으며; 이 방법은 그들이 다음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속됐다.

the Father's living spirit, the gift of eternal life. Many, indeed, had this life before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many more have received this spirit because they believed my word; but I declare that, when I return to the Father, he will send his spirit into the hearts of all men.

146:3.6 (1642.2) “While you cannot observe the divine spirit at work in your minds, there is a practical method of discovering the degree to which you have yielded the control of your soul powers to the teaching and guidance of this indwelling spirit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at is the degree of your love for your fellow men. This spirit of the Father partakes of the love of the Father, and as it dominates man, it unfailingly leads in the directions of divine worship and loving regard for one's fellows. At first you believe that you are sons of God because my teaching has made you more conscious of the inner leadings of our Father's indwelling presence; but presently the Spirit of Truth shall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it will live among men and teach all men, even as I now live among you and speak to you the words of truth. And this Spirit of Truth, speaking for the spiritual endowments of your souls, will help you to know that you are the sons of God. It will unfailingly bear witness with the Father's indwelling presence, your spirit, then dwelling in all men as it now dwells in some, telling you that you are in reality the sons of God.

146:3.7 (1642.3) “Every earth child who follows the leading of this spirit shall eventually know the will of God, and he who surrenders to the will of my Father shall abide forever. The way from the earth life to the eternal estate has not been made plain to you, but there is a way, there always has been, and I have come to make that way new and living. He who enters the kingdom has eternal life already — he shall never perish. But much of this you will the better understand when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nd you are able to view your present experiences in retrospect.”

146:3.8 (1642.4) And all who heard these blessed words were greatly cheered. The Jewish teachings had been confused and uncertain regarding the survival of the righteous, and it was refreshing and inspiring for Jesus' followers to hear these very definite and positive words of assurance about the eternal survival of all true believers.

146:3.9 (1642.5) The apostles continued to preach and baptize believers, while they kept up the practice of visiting from house to house, comforting the downcast and ministering to the sick and afflicted. The apostolic organization was expanded in that each of Jesus' apostles now had one of John's as an associate; Abner was the associate of Andrew; and this plan prevailed until they went down to Jerusalem for the next Passover.

스블론에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예수**의 특별한 교육은, 주로 천국의 상호간 책무에 대한 좀 더 깊은 토론과 관련됐고, 개인 종교 체험과, 사회의 종교적 책무를 갖는 친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의도된 가르침을 포함했다. 이것은 **주님**이 종교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언급했던, 몇 안 되는 경우들 가운데 하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 생애 내내, 종교의 사회적인 면에 관하여 추종자들에게 지침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혼합된 종족의 사람들이 **스블론**에 있었으며,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이 치유됐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예수**를 실제로 믿는 자는 거의 없었다.

4. 아이론에서 복음을 전함

갈릴리와 **유대지방**에서 작은 축에 속하는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이론**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런 회당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의 초기 사역에서 관습처럼 돼있었다. 때때로 그가 아침 예배의 설교를 맡고,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오후에 설교했다. 또한 **예수**와 사도들은 회당의 주중 저녁 모임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전도하곤 했다. **예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점점 증가했음에도, 그들은 그 도시 외곽에 있는 회당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거의 모든 회당에서 금지할 만큼, 그를 대적하는 그런 만연된 정서를 그들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중 사역에서 후기에 해당됐다. 이 무렵에는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모든 회당이 그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아이론은 당시에 대규모 광산이 있던 장소였고, **예수**께서는 광부 체험이 없었으므로, **아이론**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광산에서 보냈다. 사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광산 지하에서 광부들과 함께 일했다. 치유자로서 **예수**의 명성이 이 외판 동네에도 퍼져 있었고, 많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며, 많은 이가 그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크게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병환자의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소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아이론에서 셋째 날 늦은 오후에, **예수**께서는 광산에서 속속으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을 우연히 통과하게 됐다. 어떤 나병환자의 지저분한 오두막집 가까이 왔을 때, 치유자라는 그의 명성을 들은 고통당하던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자, 그에게 감히 나아가 물어 보려 간구했다: “주여, 당신이 하려고만 하시면 나를

146:3.10 (1642.6) The special instruction given by Jesus during their stay at Zebulun had chiefly to do with further discussions of the mutual obligations of the kingdom and embraced teaching designed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amities of social religious obligations. This was one of the few times the Master ever discussed the social aspects of religion. Throughout his entire earth life Jesus gave his followers very little instruction regarding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146:3.11 (1643.1) In Zebulun the people were of a mixed race, hardly Jew or gentile, and few of them really believed in Jesus, notwithstanding they had heard of the healing of the sick at Capernaum.

4. THE GOSPEL AT IRON

146:4.1 (1643.2) At Iron, as in many of even the smaller cities of Galilee and Judea, there was a synagogue, and during the earlier times of Jesus' ministry it was his custom to speak in these synagogues on the Sabbath day. Sometimes he would speak at the morning service, and Peter or one of the other apostles would preach at the afternoon hour. Jesus and the apostles would also often teach and preach at the weekday evening assemblies at the synagogue. Although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became increasingly antagonistic toward Jesus, they exercised no direct control over the synagogues outside of that city. It was not until later in Jesus' public ministry that they were able to create such a widespread sentiment against him as to bring about the almost universal closing of the synagogues to his teaching. At this time all the synagogues of Galilee and Judea were open to him.

146:4.2 (1643.3) Iron was the site of extensive mineral mines for those days, and since Jesus had never shared the life of the miner, he spent most of his time, while sojourning at Iron, in the mines. While the apostles visited the homes and preached in the public places, Jesus worked in the mines with these underground laborers. The fame of Jesus as a healer had spread even to this remote village, and many sick and afflicted sought help at his hands, and many were greatly benefited by his healing ministry. But in none of these cases did the Master perform a so-called miracle of healing save in that of the leper.

146:4.3 (1643.4) Late on the afternoon of the third day at Iron, as Jesus was returning from the mines, he chanced to pass through a narrow side street on his way to his lodging place. As he drew near the squalid hovel of a certain leprous man, the afflicted one, having heard of his fame as a healer, made bold to accost him as he passed his door, saying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생들의 메시지를 들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병환자는 회당에 참석하거나 공중 경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서 진정으로 고침 받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신앙으로 매달리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인간 심성이 감동됐고, 신성한 정신이 연민의 정으로 동요됐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자 그 사람이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말씀했다: “내가 원하니—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 치유됐으며, 나병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명령했다: “네 치유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서 네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증거로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자신의 나병을 **예수**께서 고쳤다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동네 사람이 그를 알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병에서 깨끗하게 됐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훈계를 듣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치유했다는 소식을 그가 온 사방에 퍼뜨린 결과로, **주님**에게 많은 병자가 몰려왔으므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마을을 떠났다. **예수**께서 다시는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광산 근처 교외에서 이를 더 남아 있으면서, 신자가 된 광부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해 좀 더 가르쳤다.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은, 이때까지 **예수**께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했던, 이른바 첫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나병의 경우였다.

그들은 **아이론**으로부터 **가이사라**로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에, **고라신**으로 출발했고, 거기서 거의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을 전했다. **고라신**에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신자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가르쳤던 어떤 곳에서도, 그의 메시지가 이곳만큼 전반적으로 거부당한 적이 없었다. **고라신**에 체류한 것은 대부분의 사도를 매우 우울하게 했으며, **안드레**와 **아브넬**은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조용히 **가버나움**을 통과하면서 **매돈**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조금도 나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도들 정신 속에는, 자기들이 최근에 방문했던 이 마을들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중에, **예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치유자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as he knelt before him: “Lord, if only you would, you could make me clean. I have heard the message of your teachers, and I would enter the kingdom if I could be made clean.” And the leper spoke in this way because among the Jews lepers were forbidden even to attend the synagogue or otherwise engage in public worship. This man really believed that he could not be received into the coming kingdom unless he could find a cure for his leprosy. And when Jesus saw him in his affliction and heard his words of clinging faith, his human heart was touched, and the divine mind was moved with compassion. As Jesus looked upon him, the man fell upon his face and worshiped. Then the Master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touching him, said: “I will — be clean.” And immediately he was healed; the leprosy no longer afflicted him.

146:4.4 (1643.5) When Jesus had lifted the man upon his feet, he charged him: “See that you tell no man about your healing but rather go quietly about your business, showing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ing those sacrifices commanded by Moses in testimony of your cleansing.” But this man did not do as Jesus had instructed him. Instead, he began to publish abroad throughout the town that Jesus had cured his leprosy, and since he was known to all the village, the people could plainly see that he had been cleansed of his disease. He did not go to the priests as Jesus had admonished him. As a result of his spreading abroad the news that Jesus had healed him, the Master was so thronged by the sick that he was forced to rise early the next day and leave the village. Although Jesus did not again enter the town, he remained two days in the outskirts near the mines, continuing to instruct the believing miners further regard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146:4.5 (1644.1) This cleansing of the leper was the first so-called miracle which Jesus had intentionally and deliberately performed up to this time. And this was a case of real leprosy.

146:4.6 (1644.2) From Iron they went to Gischala, spending two days proclaiming the gospel, and then departed for Chorazin, where they spent almost a week preaching the good news; but they were unable to win many believers for the kingdom in Chorazin. In no place where Jesus had taught had he met with such a general rejection of his message. The sojourn at Chorazin was very depressing to most of the apostles, and Andrew and Abner had much difficulty in upholding the courage of their associates. And so, passing quietly through Capernaum, they went on to the village of Madon, where they fared little better. There prevailed in the minds of most of the apostles the idea that their failure to meet with success in these towns so recently visited was due to Jesus’ insistence that they refrain, in their teaching and preaching, from referring to him as a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그의 권능을 발휘하기를, 그들은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열렬한 간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5. 가나로 돌아옴

예수께서 “우리가 내일 **가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자, 사도 일행은 매우 기뻐했다. **예수**께서 **가나**에 잘 알려졌으므로, 거기서는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셋째 날에, **가버나움**의 어떤 저명한 시민 **티투스**가 **가나**에 도착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였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가나**에 있음을 들었으며; 그래서 서둘러 그를 만나러 갔다. **가버나움**의 신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귀족은 **가나**에서 **예수**를 찾아내자,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사도들이 숨죽이고 기대감에 차서 옆에서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표적을 보거나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그 귀족이 **예수**께 간청했다: “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 주십시오. 내가 떠날 때, 그 아이는 거의 죽게 돼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 속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티투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러 나와서 말했다: “기뻐하십시오--당신 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그가 살았습니다.” 그때 **티투스**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자, 종들이, “어제 오후 한 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무렵이었음을 회상했다. **티투스**는 그때부터 전심으로 믿었고,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이 아이는 천국의 대단한 일꾼이 됐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수난 당하던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 **티투스**의 온 집안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이 사건을 기적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 기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자연 법칙 과정에 대해 그가 선견{先見}으로 아는 경우였을 뿐이고, 세례 받은 후에 **예수**께서 자주 의존한 그런 지식이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가나**에서 급히 떠나야 했는데,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관심이 이 마을에서 그의 사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억했고, 게다가 이제는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귀족의 아들을 치유한 셈이 됐으므로,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healer. How they wished he would cleanse another leper or in some other manner so manifest his power a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people! But the Master was unmoved by their earnest urging.

5. BACK IN CANA

146:5.1 (1644.3) The apostolic party was greatly cheered when Jesus announced, “Tomorrow we go to Cana.” They knew they would have a sympathetic hearing at Cana, for Jesus was well known there. They were doing well with their work of bringing people into the kingdom when, on the third day, there arrived in Cana a certain prominent citizen of Capernaum, Titus, who was a partial believer, and whose son was critically ill. He heard that Jesus was at Cana; so he hastened over to see him. The believers at Capernaum thought Jesus could heal any sickness.

146:5.2 (1644.4) When this nobleman had located Jesus in Cana, he besought him to hurry over to Capernaum and heal his afflicted son. While the apostles stood by in breathless expectancy, Jesus, looking at the father of the sick boy, said: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The power of God is in your midst, but except you see signs and behold wonders, you refuse to believe.” But the nobleman pleaded with Jesus, saying: “My Lord, I do believe, but come ere my child perishes, for when I left him he was even then at the point of death.” And when Jesus had bowed his head a moment in silent meditation, he suddenly spoke, “Return to your home; your son will live.” Titus believed the word of Jesus and hastened back to Capernaum. And as he was returning, his servants came out to meet him, saying, “Rejoice, for your son is improved — he lives.” Then Titus inquired of them at what hour the boy began to mend, and when the servants answered “yesterday abou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the father recalled that it was about that hour when Jesus had said, “Your son will live.” And Titus henceforth believed with a whole heart, and all his family also believed. This son became a mighty minister of the kingdom and later yielded up his life with those who suffered in Rome. Though the entire household of Titus, their friends, and even the apostles regarded this episode as a miracle, it was not. At least this was not a miracle of curing physical disease. It was merely a case of preknowledge concerning the course of natural law, just such knowledge as Jesus frequently resorted to subsequent to his baptism.

146:5.3 (1645.1) Again was Jesus compelled to hasten away from Cana because of the undue attention attracted by the second episode of this sort to attend his ministry in this village. The townspeople remembered the water and the wine, and now that he was supposed to have healed the nobleman's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가 멀리서 치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심부름꾼을 대신 보내오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온 지방이 떠들썩함을 보자, “**나인**으로 가자”고 말씀했다.

6.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믿었으며; 이적을 찾는 세대였다. 이 무렵까지, 중부와 남부 **갈릴리** 지방 사람은, **예수**와 그의 개인 사역을 기적과 관련시키려 하고 있었다. 순전히 신경성 질환이나 감정의 혼돈 때문에 고통당하던 수많은 진실한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치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 정신병이 치유된 경우에 대해, 무지하고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 즉 기적으로 고침 받았다고 여겼다.

예수께서 **가나**를 떠나서 **나인**으로 가려고 하자, 수많은 신도와 호기심에 찬 많은 이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 했고, 실망을 겪지 않게 돼있었다. **예수**와 제자들이 성문 가까이 왔을 때, **나인**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운반하여 근처 공동묘지로 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이 여자는 매우 존경받고 있었으므로, 동네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이 죽은 소년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례 행렬이 **예수**와 제자들 앞까지 왔을 때, 과부와 그의 친구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인간의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치유자가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적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다.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가서 관 뚜껑을 열고 그 소년을 조사했다. 젊은이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거기에 있게 됨으로써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울지 말라. 네 아들은 죽지 않았으며; 자고 있다. 그가 네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했다. 그러자 죽었다고 생각됐던 젊은이가 곧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조용히 시킨 후에, 그 청년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음과, 자신이 무덤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그를 따랐던 무리와 **나인**의 온 동네는 감정적 흥분이 절정에 달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가 엄습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꿇어앉아 기도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소란한 군중이 해산된 것은, 밤이

son at so great a distance, they came to him, not only bringing the sick and afflicted but also sending messengers requesting that he heal sufferers at a distance. And when Jesus saw that the whole countryside was aroused, he said, “Let us go to Nain.”

6. NAIN AND THE WIDOW'S SON

146:6.1 (1645.2) These people believed in signs; they were a wonder-seeking generation. By this time the people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had become miracle minded regarding Jesus and his personal ministry. Scores, hundreds, of honest persons suffering from purely nervous disorders and afflicted with emotional disturbances came into Jesus' presence and then returned home to their friends announcing that Jesus had healed them. And such cases of mental healing these ignorant and simple-minded people regarded as physical healing, miraculous cures.

146:6.2 (1645.3) When Jesus sought to leave Cana and go to Nain, a great multitude of believers and many curious people followed after him. They were bent on beholding miracles and wonders, and they were not to be disappointed. As Jesus and his apostles drew near the gate of the city, they met a funeral procession on its way to the near-by cemetery, carrying the only son of a widowed mother of Nain. This woman was much respected, and half of the village followed the bearers of the bier of this supposedly dead boy. When the funeral procession had come up to Jesus and his followers, the widow and her friends recognized the Master and besought him to bring the son back to life. Their miracle expectancy was aroused to such a high pitch they thought Jesus could cure any human disease, and why could not such a healer even raise the dead? Jesus, while being thus importuned, stepped forward and, raising the covering of the bier, examined the boy. Discovering that the young man was not really dead, he perceived the tragedy which his presence could avert; so, turning to the mother, he said: “Weep not. Your son is not dead; he sleeps. He will be restored to you.” And then, taking the young man by the hand, he said, “Awake and arise.” And the youth who was supposed to be dead presently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sent them back to their homes.

146:6.3 (1645.4) Jesus endeavored to calm the multitude and vainly tried to explain that the lad was not really dead, that he had not brought him back from the grave, but it was useless. The multitude which followed him, and the whole village of Nain, were aroused to the highest pitch of emotional frenzy. Fear seized many, panic others, while still others fell to praying and wailing over their sins. And it was not until long after nightfall

되고 한참 지난 후였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소년이 단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예수**께서 말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은 평소 **예수**의 말하듯 방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항상 아주 겸손하게 기적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과 **유대지방**까지 퍼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가 그것을 믿었다. 과부의 아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소년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음을 제자들에게도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그들에게 강조했으므로, 그 사건이 그에게 관련돼 왔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제외하고, 후대{後代}의 모든 기록에는 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다시 치료자로서 너무 많은 요청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일찍 **엔돌**로 출발했다.

7. 엔돌에서

예수께서는 육신의 치유를 원하는 소란한 무리를 피하여 **엔돌**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들이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주님**은 **사울 왕**과 **엔돌**의 마녀에 대해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타락하고 반역적인 중도자들, 즉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때때로 흉내내온 그 존재들은 곧 통제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신에게 쏟아 부어준 후에는, --소위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간영적인 존재들은, 필사자 가운데서 연약한_정신과 악한_정신을 가진 자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다고 추종자들에게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인간에게서 떠난 영은, 살아있는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있었던 원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섭리시대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필사적 사람의 진보하는 영이, 그것도 오직 특별한 경우에 그 행성의 영적 경영상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들이 이틀 동안 휴식을 취했을 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그 지방이 조용해지는 동안, 우리는 내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거기 머물면서 가르치도록 하자. 고향에서는 지금쯤 이런 종류의 흥분에서 다소 가라앉았을 것이다.”

that the clamoring multitude could be dispersed. And, of course, notwithstanding Jesus' statement that the boy was not dead, everyone insisted that a miracle had been wrought, even the dead raised. Although Jesus told them the boy was merely in a deep sleep, they explained that that was the manner of his speaking and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he always in great modesty tried to hide his miracles.

146:6.4 (1646.1) So the word went abroad throughout Galilee and into Judea that Jesus had raised the widow's son from the dead, and many who heard this report believed it. Never was Jesus able to make even all his apostles fully understand that the widow's son was not really dead when he bade him awake and arise. But he did impress them sufficiently to keep it out of all subsequent records except that of Luke, who recorded it as the episode had been related to him. And again was Jesus so besieged as a physician that he departed early the next day for Endor.

7. AT ENDOR

146:7.1 (1646.2) At Endor Jesus escaped for a few days from the clamoring multitudes in quest of physical healing. During their sojourn at this place the Master recounted for the instruction of the apostles the story of King Saul and the witch of Endor. Jesus plainly told his apostles that the stray and rebellious midwayers who had oftentimes impersonated the supposed spirits of the dead would soon be brought under control so that they could no more do these strange things. He told his followers that, after he returned to the Father, and after they had poured out their spirit upon all flesh, no more could such semispirit beings — so-called unclean spirits — possess the feeble- and evil-minded among mortals.

146:7.2 (1646.3) Jesus further explained to his apostles that the spirits of departed human beings do not come back to the world of their origin to communicate with their living fellows. Only after the passing of a dispensational age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advancing spirit of mortal man to return to earth and then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as a part of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planet.

146:7.3 (1646.4) When they had rested two days, Jesus said to his apostles: “On the morrow let us return to Capernaum to tarry and teach while the countryside quiets down. At home they will have by this time partly recovered from this sort of excitement.”

제147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 146

유랜시아 책

148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47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섹션

소개

1. 백부장의 하인
2. 예루살렘으로 여행함
3. 베데스다 연못에서
4. 삶의 규율
5.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함
6.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7. 가버나움에 돌아옴
8. 영적 선행의 축제

PAPER 147
THE INTERLUDE VISIT 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enturion's Servant
2. The Journey to Jerusalem
3. At the Pool of Bethesda
4. The Rule of Living
5. Visiting Simon the Pharisee
6. Returning to Capernaum
7. Back in Capernaum
8. The Feast of Spiritual Goodness

소개

예수와 사도들은 3월 17일 수요일에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까지 두 주일을 **벧새다** 본부에서 지냈다. 이 두 주 동안 사도들은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돌보며 언덕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디베라**로 두 번 은밀히 여행했는데, 거기서 신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헤롯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이 모임에 참석했다. **헤롯**의 정식 가족 가운데서는 이 신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예수**에 대한 그 통치자의 적대감이 많이 감소됐다. **디베라**의 이 신자들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천국”이 본래 영적이고, 정치적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헤롯**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헤롯**은 집안사람 중에서 이 식구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에 대한 널리 퍼진 평판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치유자나 종교 선생으로서 **예수**의 일에는 아무런 적대 감정을 갖지 않았

INTRODUCTION

147:0.1 (1647.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in Capernaum on Wednesday, March 17, and spent two weeks at the Bethsaida headquarters before they departed for Jerusalem. These two weeks the apostles taught the people by the seaside while Jesus spent much time alone in the hills about his Father's business. During this period Jesus, accompanied by James and John Zebedee, made two secret trips to Tiberias, where they met with the believers and instructed them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47:0.2 (1647.2) Many of the household of Herod believed in Jesus and attended these meetings. It was the influence of these believers among Herod's official family that had helped to lessen that ruler's enmity toward Jesus. These believers at Tiberias had fully explained to Herod that the “kingdom” which Jesus proclaimed was spiritual in nature and not a political venture. Herod rather believed thes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and therefore did not permit himself to become unduly alarmed by the spreading abroad of the

다. **헤롯**의 여러 조언자, 그리고 바로 **헤롯조차**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음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던 한 무리의 신하들은, **예수**와 사도들에게 모질고 위협적인 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공중 활동을 많이 훼방했다. **예수**에게 가장 큰 위협은, **헤롯**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지방**보다 **갈릴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대부분의 대중 전도를 **갈릴리**에서 했다.

reports concerning Jesus' teaching and healing. He had no objections to Jesus' work as a healer or religious teacher. Notwithstanding the favorable attitude of many of Herod's advisers, and even of Herod himself, there existed a group of his subordinates who were so influenced by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that they remained bitter and threatening enemies of Jesus and the apostles and, later on, did much to hamper their public activities. The greatest danger to Jesus lay in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and not in Herod. And it was for this very reason that Jesus and the apostles spent so much time and did most of their public preaching in Galilee rather than at Jerusalem and in Judea.

1. 백부장의 하인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 **가버나움**에 배치된 **로마** 수비대의 백부장인 지휘관 **맹거스**가, 회당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내 충직한 당번병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대신 **예수**께 가서 내 하인을 좀 치유해 달라고 간청해 주시겠습니까?" **로마** 중대장은,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께 더 잘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께 갔고, 그 대변인이 말했다: "**선생님, 가버나움**으로 가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데, 당신이 그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당신께서도 여러 번 연설했던 바로 그 회당을 우리에게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 마당에 들어서기 전에 **로마** 군인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를 맞이하게 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되니, 집안으로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여; 당신과 같은 민족인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서신 곳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치유될 것을 압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며, 내 아래에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자, **예수**께서는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토록 훌륭한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서 돌아서면서, "그러면 돌아가자"고 말씀했다. 집으로 들어간 백부장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맹거스**에게 들려줬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 시간부터 차도를 보이기

1. THE CENTURION'S SERVANT

147:1.1 (1647.3) On the day before they made ready to go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Mangus, a centurion, or captain, of the Roman guard stationed at Capernaum, came to the rulers of the synagogue, saying: "My faithful orderly i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ould you, therefore, go to Jesus in my behalf and beseech him to heal my servant?" The Roman captain did this because he thought the Jewish leaders would have more influence with Jesus. So the elders went to see Jesus and their spokesman said: "Teacher, we earnestly request you to go over to Capernaum and save the favorite servant of the Roman centurion, who is worthy of your notice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even built us the very synagogue wherein you have so many times spoken."

147:1.2 (1647.4) And when Jesus had heard them, he said, "I will go with you." And as he went with them over to the centurion's house, and before they had entered his yard, the Roman soldier sent his friends out to greet Jesus, instructing them to say: "Lord, trouble not yourself to enter my house, for I am not worthy that you should come under my roof. Neither did I think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wherefore I sent the elders of your own people. But I know that you can speak the word where you stan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am myself under the orders of others, and I have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this one go, and he goes;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s do this or do that, and they do it."

147:1.3 (1648.1) And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turned and said to his apostles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I marvel at the belief of the gentile. Verily, verily, I say to you, I have not found so great faith, no, not in Israel." Jesus, turning from the house, said, "Let us go hence." And the friends of the centurion went into the house and told Mangus what Jesus had said. And from that hour the servant began to mend and was

시작해서, 결국 정상적인 건강과 유용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단지 이렇게 기록할 뿐이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는지 아닌지는,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 하인이 완쾌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2. 예루살렘으로 여행함

3월 30일 화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사도 일행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요단** 계곡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4월 2일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본부를 **베다니**에 뒀다.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유다**가 자기 가족의 친구가 운영하는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는 동안, 그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잠시 멈췄다. **유다**가 잉여금을 소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 저축금은,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중대한 여행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다시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없었지만, **베다니**에서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육체를 치유받기 위해, 불안한 정신에 위로 받기 위해,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의 쉴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겟세마네**에 천막을 쳤고, **주님**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베다니**와 **겟세마네**를 오가곤 했다. 사도 일행이 거의 3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예수**께서는 대중 전도를 하지 말고, 오직 사적으로 가르치고 개인만을 상대로 일하라고 명했다.

그들은 **베다니**에서 **유월절**을 조용히 축하했다. 그리고 **예수**와 열두 사도 모두가 희생 제물 없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요한**의 사도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 및 그의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며; **아브넬**과 함께, 그리고 **요한**의 전도를 초기에 믿었던 여러 신자들과 함께 그 축제일을 지켰다.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보낸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가버나움**으로 떠났을 때, **요한**의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아브넬**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지역에 남아서 조용히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했으며, 한편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일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다.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해서 파견하기 직전까지는, 스물네 명이 다 함께 일하는 경우는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

eventually restored to his normal health and usefulness.

147:1.4 (1648.2) But we never knew just what happened on this occasion. This is simply the record, and as to whether or not invisible beings ministered healing to the centurion's servant, was not revealed to those who accompanied Jesus. We only know of the fact of the servant's complete recovery.

2. THE JOURNEY TO JERUSALEM

147:2.1 (1648.3) Early on the morning of Tuesday, March 30, Jesus and the apostolic party started on their journey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going by the route of the Jordan valley. They arrived on the afternoon of Friday, April 2, and established their headquarters, as usual, at Bethany. Passing through Jericho, they paused to rest while Judas made a deposit of some of their common funds in the bank of a friend of his family. This was the first time Judas had carried a surplus of money, and this deposit was left undisturbed until they passed through Jericho again when on that last and eventful journey to Jerusalem just before the trial and death of Jesus.

147:2.2 (1648.4) The party had an uneventful trip to Jerusalem, but they had hardly got themselves settled at Bethany when from near and far those seeking healing for their bodies, comfort for troubled minds, and salvation for their souls, began to congregate, so much so that Jesus had little time for rest. Therefore they pitched tents at Gethsemane, and the Master would go back and forth from Bethany to Gethsemane to avoid the crowds which so constantly thronged him. The apostolic party spent almost three weeks at Jerusalem, but Jesus enjoined them to do no public preaching, only private teaching and personal work.

147:2.3 (1648.5) At Bethany they quietly celebrated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Jesus and all of the twelve partook of the bloodless Passover feast. The apostles of John did not eat the Passover with Jesus and his apostles; they celebrated the feast with Abner and many of the early believers in John's preaching. This was the second Passover Jesus had observed with his apostles in Jerusalem.

147:2.4 (1648.6) When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or Capernaum, the apostles of John did not return with them. Under the direction of Abner they remained in Jerusalem and the surrounding country, quietly laboring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while Jesus and the twelve returned to work in Galilee. Never again were the twenty-four all together until a short time before the

은 협조적이었고, 의견이 달랐음에도 좋은 감정을 유지했다.

commissioning and sending forth of the seventy evangelists. But the two groups were co-operative, and notwithstanding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the best of feelings prevailed.

3.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루살렘에서 둘째 **안식일** 오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성전 예배에 막 참석하려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내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으로 안내했다. 이 연못 주위에는 다섯 개의 행각{行閣}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큰 무리의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 받으려고 모여 있었다. 이곳은 온천{溫泉}이었고, 불그스레한 색의 물이, 연못 아래 있는 바위 동굴에 축적된 공기로 인해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끓어오르곤 했다. 많은 이가, 이런 주기적인 온수 소용돌이는 초자연적 영향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물이 움직인 직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과한 금지조치 하에서 조바심을 냈는데,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어린 **요한**이 이 금지조치에 특히 더 침착하지 못했다. **요한**은, 모여 있는 환자들의 광경이 어찌면 **주님**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를 감동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찌면 그가 치유의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경탄할 것이고, 곧 천국 복음을 믿도록 이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그 연못으로 모시고 왔다.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이 모든 고생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요한**아, 어찌하여 내가 선택한 길에서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이적을 행하고 병자 치유하기를 바라느냐? 애야, 나는 네가 원하는 일만 하지 않겠지만,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을 해주겠다.”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여기 있는 너희 대부분은, 여러 해 잘못된 삶으로 인해 병들어 괴로워한다. 더러는 뜻밖의 사고로, 더러는 조상이 잘못된 결과로 고생하며, 한편 너희 가운데 더러는 현세에 실존하는 불완전한 조건이 방해함으로 인해 고전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이 세상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나도 일하려고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어려움을 거의 바꿀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영원자**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

3. AT THE POOL OF BETHESDA

147:3.1 (1649.1) The afternoon of the second Sabbath in Jerusalem, as the Master and the apostles were about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services, John said to Jesus, “Come with me, I would show you something.” John conducted Jesus out through one of the Jerusalem gates to a pool of water called Bethesda. Surrounding this pool was a structure of five porches under which a large group of sufferers lingered in quest of healing. This was a hot spring whose reddish-tinged water would bubble up at irregular intervals because of gas accumulations in the rock caverns underneath the pool. This periodic disturbance of the warm waters was believed by many to be due to supernatural influences, and it was a popular belief that the first person who entered the water after such a disturbance would be healed of whatever infirmity he had.

147:3.2 (1649.2) The apostles were somewhat restless under the restrictions imposed by Jesus, and John, the youngest of the twelve, was especially restive under this restraint. He had brought Jesus to the pool thinking that the sight of the assembled sufferers would make such an appeal to the Master's compassion that he would be moved to perform a miracle of healing, and thereby would all Jerusalem be astounded and presently be won to believ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Said John to Jesus: “Master, see all of these suffering ones; is there nothing we can do for them?” And Jesus replied: “John, why would you tempt me to turn aside from the way I have chosen? Why do you go on desiring to substitute the working of wonders and the healing of the sick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eternal truth? My son, I may not do that which you desire, but gather together these sick and afflicted that I may speak words of good cheer and eternal comfort to them.”

147:3.3 (1649.3) In speaking to those assembled, Jesus said: “Many of you are here, sick and afflicted, because of your many years of wrong living. Some suffer from the accidents of time, others as a result of the mistakes of their forebears, while some of you struggle under the handicaps of the imperfect conditions of your temporal existence. But my Father works, and I would work, to improve your earthly state but more especially to insure your eternal estate. None of us can do much to change the difficulties of life unless we discover the Father in heaven so wills. After all, we are all beholden to do the will of the

희의 육체적 고난이 모두 치유된다면 너희가 정말로 경탄하겠지만, 너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고, 모든 도덕적 허약함에서 치유됨을 발견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희를 괴롭히는 듯이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두려워 말라, 너희는 모두 응보뿐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이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며; 그런 신자는 이미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빛과 생명으로 건너가고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다수가 천국 복음을 믿었다.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더러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소생해서, 자신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고 전파하며 다녔다.

불안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여러 해 우울하고 심하게 고통 받던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쳤으며, **안식일**인데도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고통 받던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그 모든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느낌의 피해자였으므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회복을 위해 그가 행해야 했던 한 가지였음이—곧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다: “제 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했다고 꼬투리 잡기 전에,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그들은 동무들과 합류하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곧 떠났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과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갔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4. 삶의 규율

같은 날인 이 **안식일** 저녁에 **베다니**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 그리고 신자 무리가 **나사로**의 정원에서 불 옆에 모여 있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삶의 옛 규정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가르쳐주셨음에도, 나는 우리가 그런 권면을 어떻게 항상 지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제하려는 사람을 이처럼 죄 속에서 사악하게 바라보는 음탕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남들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저들에게 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Eternal. If you could all be healed of your physical afflictions, you would indeed marvel, but it is even greater that you should be cleansed of all spiritual disease and find yourselves healed of all moral infirmities. You are all God's children; you are the sons of the heavenly Father. The bonds of time may seem to afflict you, but the God of eternity loves you. And when the time of judgment shall come, fear not, you shall all find, not only justice, but an abundance of mercy. Verily, verily, I say to you: He who hears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believes in this teaching of sonship with God, has eternal life; already are such believers passing from judgment and death to light and life. And the hour is coming in which even those who are in the tombs shall hear the voice of the resurrection.”

147:3.4 (1649.4) And many of those who heard believed the gospel of the kingdom. Some of the afflicted were so inspired and spiritually revived that they went about proclaiming that they had also been cured of their physical ailments.

147:3.5 (1649.5) One man who had been many years downcast and grievously afflicted by the infirmities of his troubled mind, rejoiced at Jesus' words and, picking up his bed, went forth to his home, even though it was the Sabbath day. This afflicted man had waited all these years for *somebody* to help him; he was such a victim of the feeling of his own helplessness that he had never once entertained the idea of helping himself which proved to be the one thing he had to do in order to effect recovery — take up his bed and walk.

147:3.6 (1650.1) Then said Jesus to John: “Let us depart er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ome upon us and take offense that we spoke words of life to these afflicted ones.” And they returned to the temple to join their companions, and presently all of them departed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But John never told the other apostles of this visit of himself and Jesus to the pool of Bethesda on this Sabbath afternoon.

4. THE RULE OF LIVING

147:4.1 (1650.2) On the evening of this same Sabbath day, at Bethany, while Jesus, the twelve, and a group of believers were assembled about the fire in Lazarus's garden, Nathaniel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although you have taught us the positive version of the old rule of life, instructing us that we should do to others as we wish them to do to us, I do not fully discern how we can always abide by such an injunction. Let me illustrate my contention by citing the example of a lustful man who thus wickedly looks upon his intended consort in sin. How can we teach that this evil-intending man should do to others as he would they should do to him?”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손으로 그 사도를 가리키면서 말씀했다: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으로 난 자로서 내 교훈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대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나는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내 가르침을 왜곡해서 악한 행위를 장려하는 면허증으로 삼도록, 유혹받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말을 마치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그런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훈계를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나다니엘아**, 나는 네가 마음 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내 평범한 교훈에 대해 너희가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것에 실망하는데, 그 교훈은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틀림없이 사람들이 말하듯 너희에게 제시한 설명이었다. 이제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대하라’는 이 훈계, 즉 이 삶의 규율에 대한 해석에 부가돼있는 여러 다른 수준의 의미에 관하여 가르쳐 주겠다:

“ 1. 육신 수준. 그런 순전히 이기적이고 음탕하게 해석한 예는, 네가 추측하면서 질문한 것이 잘 보여줄 것이다.

“ 2. 감정 수준. 이 경지는 육신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으며,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은, 이 삶의 규율을 사람이 높게 해석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 3. 정신 수준. 이제 정신의 논리와 체험의 지성이 활동하게 된다. 훌륭한 판단은, 그런 삶의 규율을 고귀하고 심오한 자존감이라는 가장 높은 이상주의에 조화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 4. 형제다운 사랑의 수준. 동료들의 안녕에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수준이 발견된다. 더 높은 이 수준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의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형제관계임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진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수준에서, 이런 삶의 기본 규율에 대한 새롭고 훨씬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 5. 도덕 수준. 그다음에 너희가 참된 철학적 수준에서 해석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영원이 건전한 인간관계를 감지할 때, 마치 너희 삶의 상황에 적응하는

147:4.2 (1650.3) When Jesus heard Nathaniel's question, he immediately stood upon his feet and, pointing his finger at the apostle, said: "Nathaniel, Nathaniel! What manner of thinking is going on in your heart? Do you not receive my teachings as one who has been born of the spirit? Do you not hear the truth as men of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When I admonished you to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I spoke to men of high ideals, not to those who would be tempted to distort my teaching into a license for the encouragement of evil-doing."

147:4.3 (1650.4) When the Master had spoken, Nathaniel stood up and said: "But, Master, you should not think that I approve of such an interpretation of your teaching. I asked the question because I conjectured that many such men might thus misjudge your admonition, and I hoped you would give us further instruction regarding these matters." And then when Nathaniel had sat down, Jesus continued speaking: "I well know, Nathaniel, that no such idea of evil is approved in your mind, but I am disappointed in that you all so often fail to put a genuinely spiritual interpretation upon my commonplace teachings, instruction which must be given you in human language and as men must speak. Let me now teach you concerning the differing levels of meaning attach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rule of living, this admonition to 'do to others that which you desire others to do to you':

147:4.4 (1650.5) "1. The level of the flesh. Such a purely selfish and lustful interpretation would be well exemplified by the supposition of your question.

147:4.5 (1650.6) "2. The level of the feelings. This plane is one level higher than that of the flesh and implies that sympathy and pity would enhance one's interpretation of this rule of living.

147:4.6 (1650.7) "3. The level of mind. Now come into action the reason of mind and the intelligence of experience. Good judgment dictates that such a rule of living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onance with the highest idealism embodied in the nobility of profound self-respect.

147:4.7 (1651.1) "4. The level of brotherly love. Still higher is discovered the level of unselfish devotion to the welfare of one's fellows. On this higher plane of wholehearted social service growing ou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consequent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re is discovered a new and far more beautiful interpretation of this basic rule of life.

147:4.8 (1651.2) "5. The moral level. And then when you attain true philosophic levels of interpretation, when you have real insight into the rightness and wrongness of things, when you perceive the

너희의 개인 문제에 적용하듯이 좀 더 고상한 정신으로, 이상적이고, 현명하게,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제 삼자가 그런 명령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라고 너희가 상상하는바 대로, 너희는 그런 해석의 문제를 비로소 바라볼 것이다.

“ 6. 영적 수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대한, 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리라고 우리가 아는바 대로 저희를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삶의 규율에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재촉한다. 이것이 우주에서 인간관계의 이상{理想}이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항상 행하기를 너희가 최상으로 바라게 될 때, 이것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리라고 너희가 아는 그것을, 너희도 저들에게 행하기를 바란다.”

이때처럼 **예수**께서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러간 후에도 한동안 **주님**의 말씀을 계속 검토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한 질문의 성격을 **예수**께서 오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헤어나기 힘들어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철학적인 동료 사도가 용감하게 던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다.

5.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함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은 아니었더라도,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신도였으며, 심한 비난을 살 수 있음에도, **예수**와 그의 개인 동역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담하게 자기 집으로 연회 자리에 초대했다. **시몬**은 오랫동안 **주님**을 지켜봤으며, 그의 교훈에 많이 감동됐고, 그의 인격에 더 감동됐다.

부유한 **바리새인**은 자선 행위에 몰두했고, 자신의 자선 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 때로는 나팔을 불기까지 했다. **바리새인**이 저명한 손님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 때, 심지어 거리의 거지들도 들어오도록 그 집의 문을 열어 냈고, 거지들은 식사하는 사람의 의자 뒤에서 방의 벽을 따라 둘러서서, 손님들이 던져 줄지도 모르는 음식 조각 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이 특별한 기회에 거리에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온 자들 중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최근에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신자가 됐다. 이 여자는 전에 이방인의 성전 뜰 가까이에서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소

eternal fitness of human relationships, you will begin to view such a problem of interpretation as you would imagine a high-minded, idealistic, wise, and impartial third person would so view and interpret such an injunction as applied to your personal problems of adjustment to your life situations.

147:4.9 (1651.3) “6. The spiritual level. And then last, but greatest of all, we attain the level of spirit insight and spiritual interpretation which impels us to recognize in this rule of life the divine command to treat all men as we conceive God would treat them. That is the universe ideal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is is your attitude toward all such problems when your supreme desire is ever to do the Father’s will. I would, therefore, that you should do to all men that which you know I would do to them in like circumstances.”

147:4.10 (1651.4) Nothing Jesus had said to the apostles up to this time had ever more astonished them. They continued to discuss the Master’s words long after he had retired. While Nathaniel was slow to recover from his supposition that Jesus had misunderstood the spirit of his question, the others were more than thankful that their philosophic fellow apostle had had the courage to ask such a thought-provoking question.

5. VISITING SIMON THE PHARISEE

147:5.1 (1651.5) Though Simon was not a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he was an influential Pharisee of Jerusalem. He was a halfhearted believer, and notwithstanding that he might be severely criticized therefor, he dared to invite Jesus and his personal associates, Peter, James, and John, to his home for a social meal. Simon had long observed the Master and was much impressed with his teachings and even more so with his personality.

147:5.2 (1651.6) The wealthy Pharisees were devoted to almsgiving, and they did not shun publicity regarding their philanthropy. Sometimes they would even blow a trumpet as they were about to bestow charity upon some beggar. It was the custom of these Pharisees, when they provided a banquet for distinguished guests, to leave the doors of the house open so that even the street beggars might come in and, standing around the walls of the room behind the couches of the diners, be in position to receive portions of food which might be tossed to them by the banqueters.

147:5.3 (1651.7) On this particular occasion at Simon’s house, among those who came in off the street was a woman of unsavory reputation who had recently become a believer in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is woman was

위 고급 매음 장소를 갖고 있던 주인으로서, **예루살렘** 전역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 후에, 좋지 못한 사업을 그만뒀고, 자신과 관련된 대다수의 여자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인도했으나, 그럼에도 그 여자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부터 경멸을 받았고, --매춘부 표시로-- 머리를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이 이름 없는 여자가 향유(香油)를 담은 큰 병을 갖고 와서, 식탁에 앉은 **예수**의 뒤에 서서 울며, 감사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런 향유 바르기를 끝낸 후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쳤다.

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악명 높은 죄인인 줄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말씀했다: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시몬**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어느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 **시몬**아, 너는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시몬**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자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고,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계속했다: “**시몬**아, 이 여자를 잘 봐라. 내가 네 집에 초대된 손님으로 들어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감사를 표시하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영접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으나, 저 여자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이것은 단지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많이 사랑하게 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씀했다: “너는 네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고, 네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지각없고 불친절한 네 동료들의 태도로 인해 낙망하지 말고, 하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가거라.”

시몬 및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자 더 놀랐으며, “이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죄까지도 용서하는가?”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를 보내면서 말씀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신앙이 너를 구원했다.”

well known throughout all Jerusalem as the former keeper of one of the so-called high-class brothels located hard by the temple court of the gentiles. She had, on accepting the teachings of Jesus, closed up her nefarious place of business and had induced the majority of the women associated with her to accept the gospel and change their mode of living; notwithstanding this, she was still held in great disdain by the Pharisees and was compelled to wear her hair down — the badge of harlotry. This unnamed woman had brought with her a large flask of perfumed anointing lotion and, standing behind Jesus as he reclined at meat, began to anoint his feet while she als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of gratitude, wiping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when she had finished this anointing, she continued weeping and kissing his feet.

147:5.4 (1652.1) When Simon saw all this, he said to himself: “This man, if he were a prophet, would have perceived who and what manner of woman this is who thus touches him; that she is a notorious sinner.” And Jesus, knowing what was going on in Simon’s mind, spoke up, saying: “Simon, I have something which I would like to say to you.” Simon answered, “Teacher, say on.” Then said Jesus: “A certain wealthy moneylender had two debtors. The one owed him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Now, when neither of them had wherewith to pay, he forgave them both. Which of them do you think, Simon, would love him most?” Simon answered, “He, I suppose, whom he forgave the most.” And Jesus said, “You have rightly judged,” and pointing to the woman, he continued: “Simon, take a good look at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as an invited guest, yet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This grateful woman has washed my feet with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You gave me no kiss of friendly greeting, but this woman, ever since she came in,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My head with oil you neglected to anoint,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precious lotions. And what is the meaning of all this? Simply that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and this has led her to love much. But those who have received but little forgiveness sometimes love but little.” And turning around toward the woman, he took her by the hand and, lifting her up, said: “You have indeed repented of your sins, and they are forgiven. Be not discouraged by the thoughtless and unkind attitude of your fellows; go on in the joy and liberty of the kingdom of heaven.”

147:5.5 (1651.9) When Simon and his friends who sat at meat with him heard these words, they were the more astonished, and they began to whisper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man that he even dares to forgive sins?” And when Jesus heard them thus murmuring, he turned to dismiss the woman, saying, “Woman, go in peace; your faith has saved you.”

친구들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면서, **예수**께서 **시몬**을 돌아보며 말씀했다: “네 마음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네 심정을 잘 알지만; 나는 네가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대받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 네 손님의 마음 속에 이미 찾아온 천국 복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네 인생의 처소에서든 정신과 영이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께서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에게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가장 천박한 혼 또는 지상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 연합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청한 주인에게 작별을 알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야영지에 머무는 나머지 사도들과 합류하려고 떠났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과 관련된 신분의 상대적 가치와, **낙원**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진보에 관해, 오래 기억에 남을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애들아,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실존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이상{理想}을 향해서 확실히 계속 진보할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자녀가 느리게 발전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발전은 확실하다. 중요한 점은, 너희가 발전하는 속도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이다. 너희가 실제로 성취하는 성과는, 너희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너희가 하루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너희 가운데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본 이 변화된 여자가,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악의 없는 동료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이 무의미하게 예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짓된 모임들을 오가면서, 착각하는 거짓 진보에 사로잡혀있는 동안, 이 여자는 확실한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길고 중대한 추구를 시작했으며,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의 길은 영적 자존심이나 도덕적 자만심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나, 그 혼은 점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 여자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있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혼과 영의 실제 수준에서 높은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147:5.6 (1651.10) As Jesus arose with his friends to leave, he turned to Simon and said: “I know your heart, Simon, how you are torn betwixt faith and doubts, how you are distraught by fear and troubled by pride; but I pray for you that you may yield to the light and may experience in your station in life just such mighty transformations of mind and spirit as may be comparable to the tremendous changes which the gospel of the kingdom has already wrought in the heart of your unbidden and unwelcome guest. And I declare to all of you that the Father has opened the doors of the heavenly kingdom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enter, and no man or association of men can close those doors even to the most humble soul or supposedly most flagrant sinner on earth if such sincerely seek an entrance.” And Jesus, with Peter, James, and John, took leave of their host and went to join the rest of the apostles at the camp in the garden of Gethsemane.

147:5.7 (1653.1) That same evening Jesus made the long-to-be-remembered address to the apostles regarding the relative value of status with God and progress in the eternal ascent to Paradise. Said Jesus: “My children, if there exists a true and living connection between the child and the Father, the child is certain to progress continuously toward the Father’s ideals. True, the child may at first make slow progress, but the progress is none the less sure.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rapidity of your progress but rather its certainty. Your actual achievement is not so important as the fact that the *direction* of your progress is Godward. What you are becoming day by day is of infinitely more importance than what you are today.

147:5.8 (1653.2) “This transformed woman whom some of you saw at Simon’s house today is, at this moment, living on a level which is vastly below that of Simon and his well-meaning associates; but while these Pharisees are occupied with the false progress of the illusion of traversing deceptive circles of meaningless ceremonial services, this woman has, in dead earnest, started out on the long and eventful search for God, and her path toward heaven is not blocked by spiritual pride and moral self-satisfaction. The woman is, humanly speaking, much farther away from God than Simon, but her soul is in progressive motion; she is on the way toward an eternal goal. There are present in this woman tremendous spiritual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Some of you may not stand high in actual levels of soul and spirit, but you are making daily progress on the living way opened up, through faith, to God. There are tremendous possibilities in each of you for the future. Better by far to have a small but living and growing faith than to be possessed of a great intellect with its dead stores of worldly wisdom and spiritual unbelief.”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도들에게 진지하게 경고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죄를 묵인하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험잡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는 청중에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공모해서 지각없는 자녀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고, 그리하여 자식이 죄를 범하고 일찍부터 타락하도록 만드는 데 확실하게 직접 기여하는, 너무 관대하고 현명치 못한 어떤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도록,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예증을 적용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모든 발걸음에서 자멸하고 자살하는, 그런 행위와 버릇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죄로 가득한 그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혐오스럽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약간 사적인 다른 여러 모임과 연회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믿게 됐으며, 그들은 나중에 아브넬과 동역자들에게서 세례를 받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남아 있었다.

147:5.9 (1653.3) But Jesus earnestly warned his apostles against the foolishness of the child of God who presumes upon the Father's love. He declared that the heavenly Father is not a lax, loose, or foolishly indulgent parent who is ever ready to condone sin and forgive recklessness. He cautioned his hearers not mistakenly to apply his illustrations of father and son so as to make it appear that God is like some overindulgent and unwise parents who conspire with the foolish of earth to encompass the moral undoing of their thoughtless children, and who are thereby certainly and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delinquency and early demoralization of their own offspring. Said Jesus: “My Father does not indulgently condone those acts and practices of his children which are self-destructive and suicidal to all moral growth and spiritual progress. Such sinful practices are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147:5.10 (1653.4) Many other semiprivate meetings and banquets did Jesus attend with the high and the low, the rich and the poor, of Jerusalem before he and his apostles finally departed for Capernaum. And many, indeed, becam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ere subsequently baptized by Abner and his associates, who remained behind to foster the interests of the kingdom in Jerusalem and thereabouts.

6.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4월 마지막 주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본부를 떠나서, 예리고와 요단을 경유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비밀 회담을 열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그들 모두가 동의했지만, 방법에서는 합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것처럼 정부가 예수를 처벌해 주기 바랐으나, 로마인 관리들이 그의 설교에 그다지 놀라지 않도록, 예수께서 일을 잘 진행시켰음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날 열렸던 회담에서,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로 체포하여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여섯 명의 비밀 정탐꾼이 예수를 따라가도록 임명됐고, 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다가, 율법을 어기거나 신성모독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 여섯 유대인은 약 30명 정도 되는 사도 일행과 예리고에서 만났고, 제자가 되려는 것처럼 가장해서 예수의 추종자 일행에 합류했는데, 갈릴리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때까지 그 집단과 함께 남아 있었으며; 그 후에 그들 가운데 세 명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에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

6. RETURNING TO CAPERNAUM

147:6.1 (1653.5) The last week of April,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their Bethany headquarters near Jerusalem and began their journey back to Capernaum by way of Jericho and the Jordan.

147:6.2 (1654.1) The chief priests an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held many secret meetings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at to do with Jesus. They were all agreed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to put a stop to his teaching, but they could not agree on the method. They had hoped that the civil authorities would dispose of him as Herod had put an end to John, but they discovered that Jesus was so conducting his work that the Roman officials were not much alarmed by his preaching. Accordingly, at a meeting which was held the day before Jesus' departure for Capernaum, it was decided that he would have to be apprehended on a religious charge and be tried by the Sanhedrin. Therefore a commission of six secret spies was appointed to follow Jesus, to observe his words and acts, and when they had amassed sufficient evidence of lawbreaking and blasphemy, to return to Jerusalem with their report. These six Jews caught up with the apostolic party, numbering about thirty, at Jericho and, under the pretense of desiring to become disciples, attached themselves to Jesus' family of followers, remaining with the

렘으로 돌아갔다.

요단강을 건널 때 모여 있는 무리에게 베드로가 전도했으며,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아마수스 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곧바로 가기 원했으나, 거기 모여 있던 무리로 인해 3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또한 세례를 줬다. 그들은 5월 첫 날인 안식일이른 아침까지 고향을 향해서 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에 대한--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첫 고소 물증을 분명히 확보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예수께서 안드레를 불러, 유대 안식일의 법적 거리인 1,000 야드만 가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예수와 동역자들을 고소할 기회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 일행이 좁은 길을 따라서 지나갈 때, 양쪽 길가 가까운 곳에 방금 무르익기 시작한 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사도 중에서 몇 명이 배가 고팠으므로, 익은 곡식을 뜯어 먹었다. 여행자가 길을 지나가면서 곡물을 뜯어먹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것을 예수를 비난 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손으로 낱알을 비비는 안드레를 보자, 그에게 가서 말했다: “안식일에 낱알을 뜯어 손으로 비비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임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필요한 만큼만 취했는데, 언제부터 안식일에 곡물 먹는 것이 죄가 됐느냐?” 그러나 바리새인이 대답했다: “먹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낱알을 뜯어서 두 손으로 비비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며; 너희 주님께서도 그런 행동을 확실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했다: “곡물을 먹는 것이 잘못 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일이, 너희가 허락하는 곡물을 썩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런 하찮은 일로 억지를 쓰는가?” 안드레가 그들을 퀘변가라고 던지시 비난하자, 그들은 격분하여, 예수께서 마태와 말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곳으로 급히 가서 항의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당신의 사도들이 하는데; 그들은 낱알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그만 두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고발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진정으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아주 잘 기억했지만; 다윗이 배가 고파 자신과 함께 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陳設餅〕을 먹고,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줬다는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group up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second preaching tour in Galilee; whereupon three of them returned to Jerusalem to submit their repor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anhedrin.

147:6.3 (1654.2) Peter preached to the assembled multitude at the crossing of the Jordan, and the following morning they moved up the river toward Amathus. They wanted to proceed straight on to Capernaum, but such a crowd gathered here they remained three days, preaching, teaching, and baptizing. They did not move toward home until early Sabbath morning, the first day of May. The Jerusalem spies were sure they would now secure their first charge against Jesus — that of Sabbath breaking — since he had presumed to start his journey on the Sabbath day. But they were doomed to disappointment because, just before their departure, Jesus called Andrew into his presence and before them all instructed him to proceed for a distance of only one thousand yards, the legal Jewish Sabbath day's journey.

147:6.4 (1654.3) But the spies did not have long to wait for their opportunity to accuse Jesus and his associates of Sabbath breaking. As the company passed along the narrow road, the waving wheat, which was just then ripening, was near at hand on either side, and some of the apostles, being hungry, plucked the ripe grain and ate it. It was customary for travelers to help themselves to grain as they passed along the road, and therefore no thought of wrongdoing was attached to such conduct. But the spies seized upon this as a pretext for assailing Jesus. When they saw Andrew rub the grain in his hand, they went up to him and said: “Do you not know that it is unlawful to pluck and rub the grain on the Sabbath day?” And Andrew answered: “But we are hungry and rub only sufficient for our needs; and since when did it become sinful to eat grain on the Sabbath day?” But the Pharisees answered: “You do no wrong in eating, but you do break the law in plucking and rubbing out the grain between your hands; surely your Master would not approve of such acts.” Then said Andrew: “But if it is not wrong to eat the grain, surely the rubbing out between our hands is hardly more work than the chewing of the grain, which you allow; wherefore do you quibble over such trifles?” When Andrew intimated that they were quibblers, they were indignant, and rushing back to where Jesus walked along, talking to Matthew, they protested, saying: “Behold, Teacher, your apostles do that which is unlawful on the Sabbath day; they pluck, rub, and eat the grain. We are sure you will command them to cease.” And then said Jesus to the accusers: “You are indeed zealous for the law, and you do well to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but did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 that, one day when David was hungry, he and they who were with him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그리고 꼭 필요한 여러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오늘 먹으려고 준비해 온 너희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이날이 가기 전에 내가 보지 않겠느냐? 여보게들, 너희가 **안식일**을 열성적으로 잘 준수하는데, 동료들의 건강과 복지를 더 지켜주도록 하라. 내가 선언하겠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면, 내가 드러내놓고 선포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력과 지혜 있는 말에 경탄했고 당황했다. 그들은 그날 나머지 시간을 자기들끼리 따로 있으면서,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유대인의 전통을, 그리고 노예처럼 예식절차를 지키기를 반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가 행동한 것과 확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주님**은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데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방종함으로 죄를 지어 자신을 속이지 않고도,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사람들아, 너희가 진리로 깨우침을 얻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

7. 가버나움에 돌아옴

예수와 열두 사도가 **다리키아**에서 배를 타고 **벳새다**로 간 때는, 5월 3일 월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그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배로 여행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 정탐꾼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냈다.

화요일 밤에,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문답식 {問答式}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섯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당신의 가르침에 참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금식하라고 했고, **요한**도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명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의 말에 관련해서 이 질문자에게 대답했다: “혼인잔치 집 자녀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오는데, 그 시절 동안에는 혼인잔치 집 자녀들이 틀림없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런 일이지만, 금식하는 것은 하늘 나라의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재단사는, 줄지 않은 새 천 조각을 헌

ate the showbread, which it was not lawful for anyone to eat save the priests? and David also gave this bread to those who were with him. And have you not read in our law that it is lawful to do many needful things on the Sabbath day? And shall I not, before the day is finished, see you eat that which you have brought along for the needs of this day? My good men, you do well to be zealous for the Sabbath, but you would do better to guar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your fellows. I declare that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And if you are here present with us to watch my words, then will I openly proclaim that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147:6.5 (1655.1) The Pharisees were astonished and confounded by his words of discernment and wisdom. For the remainder of the day they kept by themselves and dared not ask any more questions.

147:6.6 (1655.2) Jesus' antagonism to the Jewish traditions and slavish ceremonials was always positive. It consisted in what he did and in what he affirmed. The Master spent little time in negative denunciations. He taught that those who know God can enjoy the liberty of living without deceiving themselves by the licenses of sinning. Said Jesus to the apostles: “Men, if you are enlightened by the truth and really know what you are doing, you are blessed; but if you know not the divine way, you are unfortunate and already breakers of the law.”

7. BACK IN CAPERNAUM

147:7.1 (1655.3) It was around noon on Monday, May 3, when Jesus and the twelve came to Bethsaida by boat from Tarichea. They traveled by boat in order to escape those who journeyed with them. But by the next day the others, including the official spies from Jerusalem, had again found Jesus.

147:7.2 (1655.4) On Tuesday evening Jesus was conducting one of his customary classes of questions and answers when the leader of the six spies said to him: “I was today talking with one of John's disciples who is here attending upon your teaching, and we were at a loss to understand why you never command your disciples to fast and pray as we Pharisees fast and as John bade his followers.” And Jesus, referring to a statement by John, answered this questioner: “Do the sons of the bridechamber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 bridegroom remains with them, they can hardly fast. But the time is coming when the bridegroom shall be taken away, and during those times the children of the bridechamber undoubtedly will fast and pray. To pray is natural for the children of light, but fasting is not a part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옷 위에 기우지 않는데, 그것이 젖으면 줄어들어서 보기 싫은 틈을 만들까 염려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또한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못쓰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따라서 내 사도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새 가르침 위에 낡은 명령을 너무 많이 덧붙이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선생을 잃어버린 너희는 한동안 금식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의 율법에 어울리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도래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로를 받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더욱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옛 교훈을 새로운 교리로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는 개념을 품지 말라고, 청중에게 경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오래 되고 참된 것은 지속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거부돼야 한다. 그러나 새로우면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에게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처럼 새 친구도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8. 영적 선함의 축제

그날 밤에 일반 청중이 돌아간 후 오랫동안,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계속했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선지서**에서 인용했다:

“왜 너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의에서도 즐거움 찾기를 계속한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는 투쟁과 논쟁을 위해, 그리고 사악한 주먹으로 쳐부수려고 금식 한다. 그러나 너희는, 자기 목소리가 높은 곳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그런 금식이냐?--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굶은 배와 재를 입고 앞드림이 그것이냐?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主)**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벗은 자를 보면, 그들을 입힐 것이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건강이 신속히 샘솟을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 행

Be reminded that a wise tailor does not sew a piece of new and unshrunk cloth upon an old garment, lest, when it is wet, it shrink and produce a worse rent. Neither do men put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lest the new wine burst the skins so that both the wine and the skins perish. The wise man puts the new wine into fresh wine skins. Therefore do my disciples show wisdom in that they do not bring too much of the old order over into the new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who have lost your teacher may be justified in fasting for a time. Fasting may be an appropriate part of the law of Moses, but in the coming kingdom the sons of God shall experience freedom from fear and joy in the divine spirit.” And when they heard these words, the disciples of John were comforted while the Pharisees themselves were the more confounded.

147:7.3 (1656.1) Then the Master proceeded to warn his hearers against entertaining the notion that all olden teaching should be replaced entirely by new doctrines. Said Jesus: “That which is old and also true must abide. Likewise, that which is new but false must be rejected. But that which is new and also true, have the faith and courage to accept. Remember it is written: ‘Forsake not an old friend, for the new is not comparable to him. As new wine, so is a new friend; if it becomes old, you shall drink it with gladness.’”

8. THE FEAST OF SPIRITUAL GOODNESS

147:8.1 (1656.2) That night, long after the usual listeners had retired, Jesus continued to teach his apostles. He began this special instruction by quoting from the Prophet Isaiah:

147:8.2 (1656.3) “Why have you fasted? For what reason do you afflict your souls while you continue to find pleasure in oppression and to take delight in injustice? Behold, you fast for the sake of strife and contention and to smite with the fist of wickedness. But you shall not fast in this way to make your voices heard on high.

147:8.3 (1656.4) “Is it such a fast that I have chosen — a day for a man to afflict his soul? Is it to bow down his head like a bulrush, to grovel in sackcloth and ashes? Will you dare to call this a fast and an acceptable day in the sight of the Lord? Is not this the fast I should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knots of heavy burdens,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my bread with the hungry and to bring those who are homeless and poor to my house? And when I see those who are naked, I will clothe them.

147:8.4 (1656.5) “Then shall your light break forth as the morning while your health springs forth speedily. Your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you

하고, 주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주를 부를 때 그가 대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네가 배고픈 자들에게 네 심정을 털어놓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혼을 돌보기 원하시며; 그리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고, 네 어두움이 대낮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힘을 새롭게 하시리라.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황폐하게 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 세대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안전한 길을 회복시켜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천국에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혼을 괴롭힘이나 금식함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밤낮도록 사도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 선지자의 관념에 도달하기까지 살아야함을 열심히 당부했고, 그들이 심지어 이사야는 물론 그 전 선지자들의 이상보다 훨씬 더 진보됐으면 하는 희망을 표현했다. 그날 밤에 그의 마지막 말씀은 이리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새벽 두 시가 지나서야 예수께서 말씀을 끝냈고, 모든 사람은 잠을 자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while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your rear guard. Then will you call upon the Lord, and he shall answer; you will cry out, and he shall say — Here am I. And all this he will do if you refrain from oppression, condemnation, and vanity. The Father rather desires that you draw out your heart to the hungry, and that you minister to the afflicted souls; then shall your light shine in obscurity, and even your darkness shall be as the noonday. Then shall the Lord guide you continually, satisfying your soul and renewing your strength. You shall become like a 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fail not. And they who do these things shall restore the wasted glories; they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s of many generations; they shall be called the rebuilders of broken walls, the restorers of safe paths in which to dwell.”

147:8.5 (1656.6) And then long into the night Jesus propounded to his apostles the truth that it was their faith that made them secure in the kingdom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not their affliction of soul nor fasting of body. He exhorted the apostles at least to live up to the ideas of the prophet of old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ey would progress far beyond even the ideals of Isaiah and the older prophets. His last words that night were: “Grow in grace by means of that living faith which grasps the fact that you are the sons of God while at the same time it recognizes every man as a brother.”

147:8.6 (1656.7) It was after two o'clock in the morning when Jesus ceased speaking and every man went to his place for sleep.

제148편. 벳새다에서 전도자 훈련

⇨ 147

유랜시아 책

149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48편
벳새다에서 전도자 훈련

섹션

소개

1. 새 선지자 학교
2. 벳새다 병원
3. 아버지의 일
4. 악, 죄, 죄악
5. 고난의 목적
6. 고통에 대한 오해--음에 대한 강연
7. 손 마른 사람
8. 벳새다에서 마지막 주간
9. 중풍 병자를 치유함

PAPER 148
TRAINING EVANGELISTS AT
BETHSAIDA

SECTIONS

Introduction

1. A New School of the Prophets
2. The Bethsaida Hospital
3. The Father's Business
4. Evil, Sin, and Iniquity
5. The Purpose of Affliction
6. The Misunderstanding of Suffering —
Discourse on Job
7.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8. Last Week at Bethsaida
9. Healing the Paralytic

소개

서기 28년 5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수와 사도 일행은 벳새다에서 세베대의 집에 머물렀다. 다섯 달 동안의 이 건조한 계절 내내,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을 따라서 거대한 야영지가 형성됐고, 늘어나는 예수의 일행으로 인해 점점 더 확장됐다. 진리 탐구자, 치유를 바라는 자, 호기심 가득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500에서 1,500명에 달하는, 항상 변하는 숫자의 사람이 이 야영지에 있었다. 이 천막 도시는, 전반적으로 알패오 쌍둥이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던, 세베대의 아들 다윗의 감독 아래 있었다. 그 야영지는, 전반적 경영은 물론이고, 질서와 위생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유형에 따라서 병자들이 분리됐고, 신자(信者)의 사인 엘만이라는 시리아인이 관리했다.

이 기간 내내, 사도들은 적어도 매주 한 번 물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그렇게 잡은 것을 해변 야

INTRODUCTION

148:0.1 (1657.1) FROM May 3 to October 3, A.D. 28, Jesus and the apostolic party were in residence at the Zebedee home at Bethsaida. Throughout this five months' period of the dry season an enormous camp was maintained by the seaside near the Zebedee residence, which had been greatly enlarged to accommodate the growing family of Jesus. This seaside camp, occupied by an ever-changing population of truth seekers, healing candidates, and curiosity devotees, numbered from five hundred to fifteen hundred. This tented city wa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David Zebedee, assisted by the Alpheus twins. The encampment was a model in order and sanitation as well as in its general administration. The sick of different types were segregated and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a believer physician, a Syrian named Elman.

148:0.2 (1657.2) Throughout this period the apostles would go fishing at least one day a week, selling

영지에서 소비하도록 **다윗**에게 팔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금을 그 집단의 회계에게 맡겼다. 열두 사도는, 매 달 한 주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안드레가 사도 활동을 전반적으로 계속 책임졌고, **베드로**는 전도자 학교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매일 오전에는 사도들이 전도자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몫을 담당했고, 오후에는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가 사람들을 가르쳤다. 사도들은 한 주에 닷새 동안, 저녁식사 후에,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질문 시간을 가졌다. 한 주에 한 번은 **예수**께서 이 질문 시간을 주재했고,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그 이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

다섯 달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야영지를 다녀갔다. **로마 제국** 전역과 **유프라테스** 동쪽 지역에서, 관심 있는 자들이 자주 참석했다. 이때는 **주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한 곳에 가장 오래 정착되고 잘 조직된 기간이었다. **예수**의 친 가족은, 이 시간 대부분 **나사렛** 또는 **가나**에서 지냈다.

그 야영지는 사도 일행처럼 공유 자산 공동체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이 큰 천막 도시를 자급자족하는 기업으로 키우면서 이끌어나갔는데, 그럼에도 한 사람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항상 변화를 겪어가던 이 야영지는, **베드로**의 전도자 훈련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었다.

1. 새 선지자 학교

예수께서는, 전도자 학교에 입학하려는 신청자들의 심사 위원으로, **베드로**, **야고보**, 및 **안드레**를 임명했다. **로마** 세계와 멀리 **인도**에 이르는 **동양**의 모든 종족과 민족이, 새로운 이 선지자{先知者}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있었다. 이 학교는 배우면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전 동안 배웠고, 오후에는 그것을 해변에서 회중에게 가르쳤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전에 배운 것과 오후의 가르침에 대해 토의했다.

사도 선생들은 각자 천국 복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르쳤다. 그들은 똑같이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신학적 교리를 표준화하거나 신조 형식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각 사도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 해석을 발표했다. **예수**께서는 천국 일을 하면서 얻은 개인 체험의 다양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지지했고, 한편으로는 매 주 한 번 질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견해를 반드시 조화시키고 조정했다. 가르치는

their catch to David for consumption by the seaside encampment. The funds thus received were turned over to the group treasury. The twelve were permitted to spend one week out of each month with their families or friends.

148:0.3 (1657.3) While Andrew continued in general charge of the apostolic activities, Peter was in full charge of the school of the evangelists. The apostles all did their share in teaching groups of evangelists each forenoon, and both teachers and pupils taught the people during the afternoons. After the evening meal, five nights a week, the apostles conducted question classes for the benefit of the evangelists. Once a week Jesus presided at this question hour, answering the holdover questions from previous sessions.

148:0.4 (1657.4) In five months several thousand came and went at this encampment. Interested persons from every part of the Roman Empire and from the lands east of the Euphrates were in frequent attendance. This was the longest settled and well-organized period of the Master's teaching. Jesus' immediate family spent most of this time at either Nazareth or Cana.

148:0.5 (1657.5) The encampment was not conducted as a community of common interests, as was the apostolic family. David Zebedee managed this large tent city so that it became a self-sustaining enterprise, notwithstanding that no one was ever turned away. This ever-changing camp was an indispensable feature of Peter's evangelistic training school.

1. A NEW SCHOOL OF THE PROPHETS

148:1.1 (1657.6) Peter, James, and Andrew were the committee designated by Jesus to pass upon applicants for admission to the school of evangelists. All the races and nationalities of the Roman world and the East, as far as India, were represented among the students in this new school of the prophets. This school was conducted on the plan of learning and doing. What the students learned during the forenoon they taught to the assembly by the seaside during the afternoon. After supper they informally discussed both the learning of the forenoon and the teaching of the afternoon.

148:1.2 (1658.1) Each of the apostolic teachers taught his own view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y made no effort to teach just alike; there was no standardized or dogmatic formulation of theologic doctrines. Though they all taught the *same truth*, each apostle presented his own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teaching. And Jesus upheld this presentation of the diversity of personal experience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unfailingly harmonizing and co-ordinating these many and

문제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인적 자유가 있었음에도, **시몬 베드로**의 영향력이 전도자 학교의 신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베드로** 다음으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큰 개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5개월 동안 해변에서 훈련받은 100명 이상의 전도자가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브넬** 및 **요한**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중의 70인 복음 선행 및 설교자가 뽑혔다. 전도자 학교는 열두 사도가 그랬던 것과 같은 정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이 전도자들은,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70인의 천국 사자(使者)로 임명하기 전에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여기서 해 질 무렵에 치유 받았던 큰 무리 가운데 겨우 일곱 명이 이 전도자 학생에 포함됐다. **가버나움** 귀족의 아들도, **베드로**의 학교에서 복음 활동을 위해 훈련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2. 벳새다 병원

해변에 있는 야영지와 관련하여, **시리아인**의 사 **엘만**이, 25명의 젊은 여자와 열두 명의 남자로 구성된 한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의 첫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직하여 네 달 동안 운영했다. 그들은 천막 도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영적 실행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모든 물질적 방법을 동원해서 병자를 치료했다. **예수**께서는 한 주에 세 번 이상 이 야영지의 병자들을 방문했고, 고생하는 자들 각자와 친히 만났다. 우리가 아는 한, 고난당하고 병약했던 사람 1,000명이 호전되거나 고침을 받아서 이 진료소(診療所)를 떠났지만, 그들 가운데서 소위 초자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혜택을 입은 개인들 대부분은, 자신을 **예수**께서 치유했다고 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예수께서 **엘만**의 환자들을 보살핀 것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치유 가운데 다수가, 확실히 기적의 작용과 비슷한 듯 보였지만, 그 치유는 신앙에 지배되고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의 체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기질의 변화였을 뿐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들은 강하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인간성의 즉각적이고 영감어린 영향을 받았으며, 그런 인간성의 보살핌은 두려움과 걱정을 없앴다.

엘만과 그 동역자들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

divergent views of the gospel at his weekly question hours. Notwithstanding this great degree of personal liberty in matters of teaching, Simon Peter tended to dominate the theology of the school of evangelists. Next to Peter, James Zebedee exerted the greatest personal influence.

148:1.3 (1658.2) The one hundred and more evangelists trained during this five months by the seaside represented the material from which (excepting Abner and John's apostles) the later seventy gospel teachers and preachers were drawn. The school of evangelists did not have everything in common to the same degree as did the twelve.

148:1.4 (1658.3) These evangelists, though they taught and preached the gospel, did not baptize believers until after they were later ordained and commissioned by Jesus as the seventy messengers of the kingdom. Only seven of the large number healed at the sundown scene at this place were to be found among these evangelistic students. The nobleman's son of Capernaum was one of those trained for gospel service in Peter's school.

2. THE BETHSAIDA HOSPITAL

148:2.1 (1658.4) In connection with the seaside encampment, Elman, the Syrian physician, with the assistance of a corps of twenty-five young women and twelve men, organized and conducted for four months what should be regarded as the kingdom's first hospital. At this infirmary, located a short distance to the south of the main tented city, they treated the sick in accordance with all known material methods as well as by the spiritual practices of prayer and faith encouragement. Jesus visited the sick of this encampment not less than three times a week and made personal contact with each sufferer. As far as we know, no so-called miracles of supernatural healing occurred among the one thousand afflicted and ailing persons who went away from this infirmary improved or cured.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these benefited individuals ceased not to proclaim that Jesus had healed them.

148:2.2 (1658.5) Many of the cures effected by Jesus in connection with his ministry in behalf of Elman's patients did, indeed, appear to resemble the working of miracles, but we were instructed that they were only just such transformations of mind and spirit as may occur in the experience of expectant and faith-dominated persons who are under the immediate and inspirational influence of a strong, positive, and beneficent personality whose ministry banishes fear and destroys anxiety.

148:2.3 (1658.6) Elman and his associates

힘”에 대해 이 병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나,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고난당하는 자의 정신이나 몸속에 소위 더러운 영이 들어있음으로써, 육신의 질병과 정신 착란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만나는 모든 경우에, 치료하는 기법 또는 질병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을 밝히는 문제에 부딪칠 때,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모험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낙원** 형제 **임마누엘**에게서 받았던 지시를 엄두에 뒀다. 그럼에도, 병자들을 돌보던 그들은, 병들고 고생하는 자들의 신앙과 확신을 **예수**께서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많은 유익한 교훈을 얻었다.

그 야영지는 말라리아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계절 바로 전에 해산됐다.

endeavored to teach the truth to these sick ones concerning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but they met with little success. The belief that physical sickness and mental derangement could be caused by the dwelling of a so-called unclean spirit in the mind or body of the afflicted person was well-nigh universal.

148:2.4 (1659.1) In all his contact with the sick and afflicted, when it came to the technique of treatment or the revelation of the unknown causes of disease, Jesus did not disregard the instruction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given ere he embarked upon the venture of the Urantia incarnation. Notwithstanding this, those who ministered to the sick learned many helpful lessons by observing the manner in which Jesus inspired the faith and confidence of the sick and suffering.

148:2.5 (1659.2) The camp disbanded a short time before the season for the increase in chills and fever drew on.

3. 아버지의 일

이 기간 내내, **예수**께서 야영지에서 대중 예배를 인도한 것은 열두 번 미만이었으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들과 함께 공적인 2차 **갈릴리**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가서야 한 번 강연했을 뿐이다.

세례 받은 후로, **벳새다**에서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이 야영지 시절만큼 **주님**이 그렇게 많이 혼자 지낸 기간은 없었다. 사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어찌하여 자신들로부터 그렇게 자주 떠나가 있는냐고 **예수**께 물을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대답하곤 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 사도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대동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00명 넘는 새로운 전도자 후보를 훈련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동무들로서의 임무에서 잠시 풀어줬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돌보기 위해 언덕으로 가기 원할 때, 한가한 사도들 중에서 아무나 두 사람씩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열두 사도 각자가 **예수**와 가깝게 지내면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언덕에서 그렇게 혼자 지내던 이 여러 기간에, **주님**은 우주 직무에 관여하는 주요 지휘관들과 직접 행정적인 연합을 이뤘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왔다. 대략 그가 세례 받았던 시기 이후로 줄곧, 우리 우주의 이 육신화 된 **주권자**는, 특정한 국면들

3. THE FATHER'S BUSINESS

148:3.1 (1659.3) Throughout this period Jesus conducted public services at the encampment less than a dozen times and spoke only once in the Capernaum synagogue, the second Sabbath before their departure with the newly trained evangelists upon their seco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148:3.2 (1659.4) Not since his baptism had the Master been so much alone as during this period of the evangelists' training encampment at Bethsaida. Whenever any one of the apostles ventured to ask Jesus why he was absent so much from their midst, he would invariably answer that he was “about the Father's business.”

148:3.3 (1659.5) During these periods of absence, Jesus was accompanied by only two of the apostles. He had released Peter, James, and John temporarily from their assignment as his personal companions that they might als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raining the new evangelistic candidates, numbering more than one hundred. When the Master desired to go to the hills about the Father's business, he would summon to accompany him any two of the apostles who might be at liberty. In this way each of the twelve enjoyed an opportunity for close association and intimate contact with Jesus.

148:3.4 (1659.6) It has not been reveal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rd, but we have been led to infer that the Master, during many of these solitary seasons in the hills, was in direct and executive association with many of his chief directors of universe affairs. Ever since about the time of his baptism this incarnated Sovereign of our universe

의 우주 경영을 지시하는데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 세상 직무에 적게 참여 했던 이 기간에, 항상 측근 동역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광대한 우주의 운영을 책임 맡은 그 높은 영지성체들을 지시하는 일로 바빴다고 생각해 왔으며, 인간 예수께서는 그런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버지의 일을 돌본다”고 표명하기로 선택했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

예수께서 두 사도만 데리고 홀로 여러 시간 보내던 시절에, 가까이 있던 그들은, 그가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또한 그들은, 천상 {天上}의 존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중에 목격했던 바와 같이, 그 존재들은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악, 죄, 죄악

예수께서는 습관적으로, 매 주 이틀 저녁 **세베대의** 정원 한적한 곳에서, 직접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대화했다. 이렇게 상담 시간을 갖던 어느 날 저녁에, **도마가 주님께** 질문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악한 자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 악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

“악한 자, 더 분명히 말하면 **죄악을 범한 자**와 악을 혼동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부르는 그는, 이기적인 아들, 즉 내 **아버지**와 그의 충성된 **아들**들의 규율을 어기고, 고의적인 반역을 알면서 행했던 고위 경영자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죄 많은 반역자들을 이겼다. **아버지**와 우주에 대한 이런 상반된 태도를 네 정신 속에서 분명히 해둬라. **아버지** 뜻에 관계되는 이런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악{惡}은, 신성한 율법, 즉 무의식적으로 또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악은 **아버지** 뜻에 얼마나 불완전하게 순종하는가를 재는 척도다.

“죄는, 신성한 율법, 즉 **아버지** 뜻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다. 죄는, 신성하게 인도되고 영적으로 지시받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재는 척도다.

“죄악은, 신성한 율법, 즉 의지를 갖고, 완고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죄악은, 사랑으로 인격을 생존하게 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자비로운 구원의 사역을, 얼마나 계속 거부하는지를 재는 척도다.

had become increasingly and consciously active in the direction of certain phas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we have always held the opinion that, in some way not revealed to his immediate associates, during these weeks of decreased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earth he was engaged in the direction of those high spirit intelligences who were charged with the running of a vast universe, and that the human Jesus chose to designate such activities on his part as being “about his Father’s business.”

148:3.5 (1659.7) Many times, when Jesus was alone for hours, but when two of his apostles were near by, they observed his features undergo rapid and multitudinous changes, although they heard him speak no words. Neither did they observe any visible manifestation of celestial beings who might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ir Master, such as some of them did witness on a subsequent occasion.

4. EVIL, SIN, AND INIQUITY

148:4.1 (1659.8) It was the habit of Jesus two evenings each week to hold special converse with individuals who desired to talk with him, in a certain secluded and sheltered corner of the Zebedee garden. At one of these evening conversations in private Thomas asked the Master this question: “Why is it necessary for men to be born of the spirit in order to enter the kingdom? Is rebirth necessary to escape the control of the evil one? Master, what is evil?” When Jesus heard these questions, he said to Thomas:

148:4.2 (1660.1)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evil with the evil one, more correctly the iniquitous one. He whom you call the evil one is the son of self-love, the high administrator who knowingly went into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rule of my Father and his loyal Sons. But I have already vanquished these sinful rebels. Make clear in your mind thes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ather and his universe. Never forget these laws of relation to the Father’s will:

148:4.3 (1660.2) “Evil is the unconscious or unintended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Evil is likewise the measure of the imperfectness of obedience to the Father’s will.

148:4.4 (1660.3) “Sin is the conscious, knowing, and deliberate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Sin is the measure of unwillingness to be divinely led and spiritually directed.

148:4.5 (1660.4) “Iniquity is the willful, determined, and persistent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Iniquity is the measure of the continued rejection of the Father’s loving plan of personality survival and the Sons’ merciful ministry

“필사적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선천적으로 악한 경향에 지배되지만, 그런 자연스런 불완전한 행실은 죄가 아니고 죄악도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에 이르는 긴 오르막길을 막 내딛고 있다. 타고난 재능에서 불완전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죄가 아니다. 사람은 정말로 악에 굴복하기 쉽지만, 알면서도 고의로 죄의 길과 죄악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도 악한 존재의 자녀가 아니다. 악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내재적이지만, 죄는 영적인 빛으로부터 짙은 어두움 속으로 빠진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의식하면서 반역하는 태도다.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와 **페르시아인**의 오류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완벽한 **아담**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죄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타락해서 현재의 한심스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악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해서 **노**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아내를 얻었는지를 드러내는 그 기록의 의미를 납득하기를 왜 거부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기를 왜 거부하느냐?

“사람은 정말로 본래 악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새로 태어남--곧 영으로 세례 받음--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중에 아무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잠재적 악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외계인, 외래인, 또는 양자로서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입양되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모든 의견은, 첫째로 네가 **아버지**를 오해한 데서, 둘째로 사람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을 몰라서 생긴다.

“**그리스인** 및 다른 이들은, 사람이 신(神)처럼 완전한 처지에서, 망각 또는 과멸을 향해 꾸준히 타락했다고 너희에게 가르쳤으나; 이제 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신성한 완전성을 향해 확실히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영원한 **아버지** 뜻의 신성하고 영적인 이상(理想)에 어떤 면에서든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악하지만, 그런 존재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죄악을 범한 것은 더욱 아니다.

“**도마야**, **성서**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아들로 택했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

of salvation.

148:4.6 (1660.5) “By nature, before the rebirth of the spirit, mortal man is subject to inherent evil tendencies, but such natural imperfections of behavior are neither sin nor iniquity. Mortal man is just beginning his long ascent to the perfection of the Father in Paradise. To be imperfect or partial in natural endowment is not sinful. Man is indeed subject to evil, but he is in no sense the child of the evil one unless he has knowingly and deliberately chosen the paths of sin and the life of iniquity. Evil is inherent in the natural order of this world, but sin is an attitude of conscious rebellion which was brought to this world by those who fell from spiritual light into gross darkness.

148:4.7 (1660.6) “You are confused, Thomas, by the doctrines of the Greeks and the errors of the Persians. You do not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evil and sin because you view mankind as beginning on earth with a perfect Adam and rapidly degenerating, through sin, to man's present deplorable estate. But why do you refuse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 record which discloses how Cain, the son of Adam, went over into the land of Nod and there got himself a wife? And why do you refus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record which portrays the sons of God finding wives for themselves among the daughters of men?

148:4.8 (1660.7) “Men are, indeed, by nature evil, but not necessarily sinful. The new birth — the baptism of the spirit — is essential to deliverance from evil and necessary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none of this detracts from the fact that man is the son of God. Neither does this inherent presence of potential evil mean that man is in some mysterious way estranged from the Father in heaven so that, as an alien, foreigner, or stepchild, he must in some manner seek for legal adoption by the Father. All such notions are born, first, of your misunderstanding of the Father and, second, of your ignorance of the origin, nature, and destiny of man.

148:4.9 (1660.8) “The Greeks and others have taught you that man is descending from godly perfection steadily down toward oblivion or destruction; I have come to show that man, by entrance into the kingdom, is ascending certainly and surely up to God and divine perfection. Any being who in any manner falls short of the divine and spiritual ideals of the eternal Father's will is potentially evil, but such beings are in no sense sinful, much less iniquitous.

148:4.10 (1661.1) “Thomas, have you not read about this in the Scriptures, where it is written: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I will be his Father and he shall be my son.’ ‘I have chosen him to be my son — I will be his Father.’ ‘Bring my

으로 부름 받는 자들도 다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태어난 아이에게는 인간 아버지의 물질 요소가 있는 반면, 천국의 신앙 아들마다 그 속에 하늘 **아버지**의 영적 단편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더 많은 것을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고, 그는 대부분을 납득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는 이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5. 고난의 목적

정원에서 개인적으로 면담했던 다른 경우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나는 당신께서 치유를 베풀기를 왜 절제하시는지 비로소 이해하지만,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그렇게 많은 자녀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지,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대답했다:

"**나다니엘**아, 너 또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런 식의 혼동을 겪는 것은, 아버지 뜻에 반항한 어떤 반역자들이 죄 많은 모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얼마나 여러 번 격동돼 왔는지, 네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시발점을 만들려고 왔다. 그러나 우주의 이 부분을 옛 경로들로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죄와 반역으로 추가된 괴로움에서 사람의 자녀들을 풀어주려면, 여러 시대가 필요할 것이다. 악의 현존만으로도, 사람의 상생을 위한 충분한 시험이다—죄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애야, 너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신의 뜻을 따라서 좀 더 나은 길로 걸어갈 것을 끊임없이 거절한 결과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한다. 고난이 악에 잠재돼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죄와 죄악으로 인해 생겼다. 많은 유별난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났고, 분별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목격하는 고통과 고난의 장면들로 당황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한 가지를 너희가 확신할 것인데: **아버지**께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독단적 형벌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악에 속한 불완전함 및 불리한 조건은 내재적이며;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으며; 파괴시키는 죄악의 영향력은 변경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삶의 자연스런 결과인 그런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한 부분인 그런 체험에 대해, 불평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신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지속적

sons from 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s of the earth; even every one who is called by my name, for I have created them for my glory.' 'You are the sons of the living God.' 'They who have the spirit of God are indeed the sons of God.' While there is a material part of the human father in the natural child, there is a spiritual part of the heavenly Father in every faith son of the kingdom."

148:4.11 (1661.2) All this and much more Jesus said to Thomas, and much of it the apostle comprehended, although Jesus admonished him to "speak not to the others concerning these matters until after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nd Thomas did not mention this interview until after the Master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5. THE PURPOSE OF AFFLICTION

148:5.1 (1661.3) At another of these private interviews in the garden Nathaniel asked Jesus: "Master, though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why you refuse to practice healing indiscriminately, I am still at a loss to understand why the loving Father in heaven permits so many of his children on earth to suffer so many afflictions." The Master answered Nathaniel, saying:

148:5.2 (1661.4) "Nathaniel, you and many others are thus perplexed because you do not comprehend how the natural order of this world has been so many times upset by the sinful adventures of certain rebellious traitors to the Father's will. And I have come to make a beginning of setting these things in order. But many ages will be required to restore this part of the universe to former paths and thus release the children of men from the extra burdens of sin and rebellion. The presence of evil alone is sufficient test for the ascension of man — sin is not essential to survival.

148:5.3 (1661.5) "But, my son, you should know that the Father does not purposely afflict his children. Man brings down upon himself unnecessary affliction as a result of his persistent refusal to walk in the better ways of the divine will. Affliction is potential in evil, but much of it has been produced by sin and iniquity. Many unusual events have transpired on this world, and it is not strange that all thinking men should be perplexed by the scenes of suffering and affliction which they witness. But of one thing you may be sure: The Father does not send affliction as an arbitrary punishment for wrongdoing. The imperfections and handicaps of evil are inherent; the penalties of sin are inevitable; the destroying consequences of iniquity are inexorable. Man should not blame God for those afflictions which are the natural result of the life which he chooses to live; neither should man complain of those experiences which are a

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불행을 총명하게 머리를 씬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다니엘아,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정신에 박차를 가해서, 복잡한 물질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영감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네가 **성서**를 읽으면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무지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너무 자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네가 납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직접 책임은 아니다. 네가 순수하게 또는 고의로 그런 신성한 법령을 어겼으므로, **아버지**가 제정한 의롭고 현명한 어떤 율법이 우연히 너를 괴롭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다니엘아**, 네가 **성서**를 분별하면서 읽기만 했어도, 배울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된 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경멸하지 말며; 그의 처벌을 싫어하지도 마라, 이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 같이, **주**께서 꾸짖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괴롭히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이로 인해 내가 신성한 법령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피난처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 있다.’ ‘**주**는 또한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의 쉼터시다.’ ‘**주**께서 고난의 병상에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며; **주**께서는 병자를 잊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네 체질을 아시며; 네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상심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시며, 고뇌 속에 있는 궁핍한 자들의 힘이시며,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시며, 강력한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연기 나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내가 고난의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역경의 강물이 내게 넘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보내서 상심한 자들을 감싸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셨다.’ ‘고통 속에는 꾸지람이 있으며; 고난은 티끌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part of life as it is lived on this world. It is the Father's will that mortal man should work persistently and consistently toward the betterment of his estate on earth. Intelligent application would enable man to overcome much of his earthly misery.

148:5.4 (1662.1) “Nathaniel, it is our mission to help men solve their spiritual problems and in this way to quicken their minds so that they may be the better prepared and inspired to go about solving their manifold material problems. I know of your confusion as you have read the Scriptures. All too often there has prevailed a tendency to ascribe to God th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which ignorant man fails to understand. The Father is not personally responsible for all you may fail to comprehend. Do not doubt the love of the Father just because some just and wise law of his ordaining chances to afflict you because you have innocently or deliberately transgressed such a divine ordinance.

148:5.5 (1662.2) “But, Nathaniel, there is much in the Scriptures which would have instructed you if you had only read with discernment. Do you not remember that it is written: ‘My son, despise not the chastening of the Lord; neither be weary of his correction, for 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even as the father corrects the son in whom he takes delight.’ ‘The Lord does not afflict willingly.’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do I keep the law. Affliction was good for me that I might thereby learn the divine statutes.’ ‘I know your sorrows.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while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The Lord also is a refuge for the oppressed, a haven of rest in times of trouble.’ ‘The Lord will strengthen him upon the bed of affliction; the Lord will not forget the sick.’ ‘As a father shows compassion for his children, so is the Lord compassionate to those who fear him. He knows your body; he remembers that you are dust.’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He is the hope of the poor, the strength of the needy in his distress, a refuge from the storm, and a shadow from the devastating heat.’ ‘He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who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A bruised reed shall he not break, and the smoking flax he will not quench.’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of affliction, I will be with you, and when the rivers of adversity overflow you, I will not forsake you.’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comfort all who mourn.’ ‘There is correction in suffering; affliction does not spring forth from the dust.’”

6. 고통에 대한 오해—옴에 대한 강연

6. THE MISUNDERSTANDING OF SUFFERING —

DISCOURSE ON JOB

같은 날 밤 **벳새다**에서, 아주 명백하게 선한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해 **요한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많은 다른 것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애야, 너는 역경의 의미 또는 고통의 역할을 납득하지 못한다. 너는 **셈족속** 문학작품 중에서 걸작인--**욥**의 고난이라는 **성서**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의** 종의 물질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욥**은, 자식, 재산, 명예, 지위, 건강 등, 즉 사람이 현세의 삶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복을 받았음을 너는 잘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유서 깊은 교훈에 의하면, 그런 물질적 번영은 신(神)의 은총을 받았다는 완전히_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런 물질 소유물이나 그런 현세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신성한 법을 어기면 처벌이라는 결과가 조만간 따라오기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결국 반드시 거두지만, 그래도 인간의 고통이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저희의 난처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관점에 비추어, 이 독특한 비유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너는 도저히 **사탄**이 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욥**은, 자신의 지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 또는 자신의 철학적인 어려움의 해결책을, 고난을 통해서 찾지 못한 반면,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붕괴되는 바로 그 앞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경지로 자신을 끌어 올렸으며; 그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욥**은, 잘못 이해된 고난을 통해서도 도덕적 이해와 영적 통찰력을 얻는, 초인적 경지로 올라갔다. 고난 받는 종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을 때,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따라왔다.

“**욥**의 첫째 친구 **엘리바스**가 수난자에게, 그가 변성했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했던 동일한 곳곳함을 자신의 역경 속에서 보이라고 훈계했다. 이 거짓 위안자가 말했다: ‘**욥**이여, 네 종교를 신뢰하라; 사악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이지,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 벌을 받을 일을 했음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음을 너는 잘 안다. 사악한 자는 절대로 변성할 수 없다는 것도 너는 안다. 아무튼, 사람은 고생이 예정된 것처럼 보이며, 아마 **주**께서 너를 좋게 하기 위해 벌하시

148:6.1 (1662.3) It was this same evening at Bethsaida that John also asked Jesus why so many apparently innocent people suffered from so many diseases and experienced so many afflictions. In answering John's questions, among many other things, the Master said:

148:6.2 (1662.4) “My son, you do not comprehend the meaning of adversity or the mission of suffering. Have you not read that masterpiece of Semitic literature — the Scripture story of the afflictions of Job? Do you not recall how this wonderful parable begins with the recital of the material prosperity of the Lord's servant? You well remember that Job was blessed with children, wealth, dignity, position, health, and everything else which men value in this temporal life. According to the time-honored teachings of the children of Abraham such material prosperity was all-sufficient evidence of divine favor. But such material possessions and such temporal prosperity do not indicate God's favor. My Father in heaven loves the poor just as much as the rich;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148:6.3 (1663.1) “Although transgression of divine law is sooner or later followed by the harvest of punishment, while men certainly eventually do reap what they sow, still you should know that human suffering is not always a punishment for antecedent sin. Both Job and his friends failed to find the true answer for their perplexities. And with the light you now enjoy you would hardly assign to either Satan or God the parts they play in this unique parable. While Job did not, through suffering, find the resolution of his intellectual troubles or the solution of his philosophical difficulties, he did achieve great victories; even in the very face of the breakdown of his theological defenses he ascended to those spiritual heights where he could sincerely say, ‘I abhor myself’; then was there granted him the salvation of a vision of God. So even through misunderstood suffering, Job ascended to the superhuman plane of moral understanding and spiritual insight. When the suffering servant obtains a vision of God, there follows a soul peace which 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148:6.4 (1663.2) “The first of Job's friends, Eliphaz, exhorted the sufferer to exhibit in his afflictions the same fortitude he had prescribed for others during the days of his prosperity. Said this false comforter: ‘Trust in your religion, Job; remember that it is the wicked and not the righteous who suffer. You must deserve this punishment, else you would not be afflicted. You well know that no man can be righteous in God's sight. You know that the wicked never really prosper. Anyway, man seems predestined to trouble, and perhaps the Lord is only chastising you for your own good.’ No wonder poor Job failed to get much comfort from

는지도 모른다.’ 인간적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석에서, 불쌍한 **욥**이 크게 위로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둘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신학 관점에서는 정당하게 들리더라도, 더욱 짓눌렀다. **빌닷**이 말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실 수 없다. 네 자녀가 죽었으니 그들은 죄인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네가 잘못했음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당할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정녕 의롭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고통에서 건지실 것이다. **전능자**께서는 단지 사악한 자들만 죽이신다는 것을,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너는 기억한다. 그가 말했다: ‘도와달라는 내 외침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을 나는 잘 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철저히 내 결백을 무시하실 수 있는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배우고 있다. 사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심을 너희는 분별할 수 있는가? 사람이 그토록 약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대체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나를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인가?’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그의 정신을 차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비취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욥**이 인간다운 **하나님**을 열망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정황을 알고 또한 **낙원**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 중에서, 이 첫 번째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올바른 자들이 종종 억울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 대화하기를 **욥**이 몹시 원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겠는가? 그래서, **욥**이 견딘 고난을 견디라고 요청받을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려고 **아버지**로부터 왔다.

“**욥**의 셋째 친구 **소발**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함을 나는 시인한다. 네 비극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욥**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목숨이 길지 않고, 근심이 가득하나다’라는 사실을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직접 간청했다.

“그때 그의 친구들과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됐다. **엘리바스**는 더욱 단호해졌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자 **빌닷**은 분개했으며, **소발**은 우울한 조언을 되풀이했다. 이 무렵에 **욥**은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 다시 호소했으며, 이제 그는, 친구들의 철학으로 유형화되고 자신의 종교적 태도에도 소중히 간직했던 불공평한 **하나님**에 맞서서, 공정하신 **하**

such an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148:6.5 (1663.3) “But the counsel of his second friend, Bildad, was even more depressing, notwithstanding its soundness from the standpoint of the then accepted theology. Said Bildad: ‘God cannot be unjust. Your children must have been sinners since they perished; you must be in error, else you would not be so afflicted. And if you are really righteous, God will certainly deliver you from your afflictions. You should learn from the history of God’s dealings with man that the Almighty destroys only the wicked.’

148:6.6 (1663.4) “And then you remember how Job replied to his friends, saying: ‘I well know that God does not hear my cry for help. How can God be just and at the same time so utterly disregard my innocence? I am learning that I can get no satisfaction from appealing to the Almighty. Cannot you discern that God tolerates the persecution of the good by the wicked? And since man is so weak, what chance has he for consideration at the hands of an omnipotent God? God has made me as I am, and when he thus turns upon me, I am defenseless. And why did God ever create me just to suffer in this miserable fashion?’

148:6.7 (1663.5) “And who can challenge the attitude of Job in view of the counsel of his friends and the erroneous ideas of God which occupied his own mind? Do you not see that Job longed for a human God, that he hungered to commune with a divine Being who knows man’s mortal estate and understands that the just must often suffer in innocence as a part of this first life of the long Paradise ascent? Wherefore has the Son of Man come forth from the Father to live such a life in the flesh that he will be able to comfort and succor all those who must henceforth be called upon to endure the afflictions of Job.

148:6.8 (1663.6) “Job’s third friend, Zophar, then spoke still less comforting words when he said: ‘You are foolish to claim to be righteous, seeing that you are thus afflicted. But I admit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God’s ways. Perhaps there is some hidden purpose in all your miseries.’ And when Job had listened to all three of his friends, he appealed directly to God for help, pleading the fact that ‘man, born of woman, is few of days and full of trouble.’

148:6.9 (1664.1) “Then began the second session with his friends. Eliphaz grew more stern, accusing, and sarcastic. Bildad became indignant at Job’s contempt for his friends. Zophar reiterated his melancholy advice. Job by this time had become disgusted with his friends and appealed again to God, and now he appealed to a just God against the God of injustice embodied in the philosophy of his friends and enshrined even in his own religious

나님께 탄원했다. 그다음에 **욥**은, 필사자 실존에서 생기는 불공평함이 좀 더 공정하게 수정될까 싶은 미래의 삶 속에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람에게서 도움 받지 못했으므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 그러자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서 신앙과 의심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켰다. 마침내, 인간 수난자는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했으며; 괴로움을 받던 그의 혼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높은 경지로 올라갔으며; 계속 고생하다가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의 깨달은 혼은 이제, '내 **옹호자**가 살아계신다!'는 승리의 외침을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부모를 벌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교리에 **욥**이 도전했을 때, 그가 참으로 옳았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언제나 돼있었으나, **영원자**의 인격적 성품에 대하여 혼을 만족시키는 어떤 계시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 받는 필사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에 훌륭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이것이 그 길이니, 그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너를 그분처럼 만들려고 그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너는 납득하지 못한다 말이나!"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를 자진해서 괴롭히지 않으신다. 첫째로, 사람은 시간 세계의 사건들로 인해,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존의 악(惡)인 불완전함으로 인해 고생한다. 그다음에, 그는 --생명과 빛의 법을 어긴-- 냉혹한 죄의 결과로 고생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의로운 규율에 대항하는 반역에 스스로 간악하게 집착했던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곤경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에게** 불시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하지만, 악한 자가 부추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신다는 미신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이 선한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발견하기 위해 **욥**기를 읽어 보라; 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도, 심지어 심하게 고난당하던 **욥**이 어떻게 위안과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은 고통의 구름을 꿰뚫었고,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 치유하는 자비요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요한은 마음 속으로 이 말씀을 여러 날 숙고했다. 그의 남은 생애 전체는, 그 정원에서 **주님**과 가진 이 대화의 결과로 현저히 변화했으며; 나중에 다른 사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고난의 근원, 본질, 및 목적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바꾸는 데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세

attitude. Next Job took refuge in the consolation of a future life in which the inequities of mortal existence may be more justly rectified. Failure to receive help from man drives Job to God. Then ensues the great struggle in his heart between faith and doubt. Finally, the human sufferer begins to see the light of life; his tortured soul ascends to new heights of hope and courage; he may suffer on and even die, but his enlightened soul now utters that cry of triumph, 'My Vindicator lives!'

148:6.10 (1664.2) "Job was altogether right when he challenged the doctrine that God afflicts children in order to punish their parents. Job was ever ready to admit that God is righteous, but he longed for some soul-satisfying revel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Eternal. And that is our mission on earth. No more shall suffering mortals be denied the comfort of knowing the love of God and understanding the mercy of the Father in heaven. While the speech of God spoken from the whirlwind was a majestic concept for the day of its utterance, you have already learned that the Father does not thus reveal himself, but rather that he speaks within the human heart as a still, small voice, saying, 'This is the way; walk therein.' Do you not comprehend that God dwells within you, that he has become what you are that he may make you what he is!"

148:6.11 (1664.3) Then Jesus made this final statement: "The Father in heaven does not willingly afflict the children of men. Man suffers, first, from the accidents of time and the imperfections of the evil of an immature physical existence. Next, he suffers the inexorable consequences of sin — the transgression of the laws of life and light. And finally, man reaps the harvest of his own iniquitous persistence in rebellion against the righteous rule of heaven on earth. But man's miseries are not a personal visitation of divine judgment. Man can, and will, do much to lessen his temporal sufferings. But once and for all be delivered from the superstition that God afflicts man at the behest of the evil one. Study the Book of Job just to discover how many wrong ideas of God even good men may honestly entertain; and then note how even the painfully afflicted Job found the God of comfort and salvation in spite of such erroneous teachings. At last his faith pierced the clouds of suffering to discern the light of life pouring forth from the Father as healing mercy and everlasting righteousness."

148:6.12 (1664.4) John pondered these sayings in his heart for many days. His entire afterlife was markedly changed as a result of this conversation with the Master in the garden, and he did much, in later times, to cause the other apostles to change their viewpoints regarding the source, nature, and

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회담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purpose of commonplace human afflictions. But John never spoke of this conference until after the Master had departed.

7. 손 마른 사람

사도들과 새 전도자 단체가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둘째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의로운 삶의 기쁨**”에 대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했다. 예수께서 말씀을 끝냈을 때, 불구된 자, 절름발이, 병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큰 무리가, 치유 받으려고 그를 둘러싸며 모여 들었다. 또한 그 무리에는, 사도들, 새 전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정탐꾼들도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일을 하리 언덕으로 갔을 때를 제외하고) 예수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여섯 명의 **예루살렘** 정탐꾼도 반드시 따라왔다.

예수께서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바리새인** 정탐꾼 우두머리가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께 가까이 가서 안식일에 치료 받는 것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치유 받기를 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보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말씀했다: “네게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라. 네게 양 한 마리가 있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그런 일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 “예, **주님**,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냈는지 나는 안다.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도록 만들어서 나를 공격할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너희 모두가 속으로는,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림이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너희에게 증거 하겠는데,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당하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선포하겠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 자기 앞에 조용히 서 있자,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했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옆으로 와서 여기 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임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네게 치유 받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명하겠는데,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됐다.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혼내주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께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명하면서 말씀했다: “나는 방금 너희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떠났다. 안식일이었음에도, 그들은 **디베라**까지 서둘러 가서 **헤롯**과 상담했고, **헤롯** 집안이 예수와 반목하도록

7.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148:7.1 (1664.5) The second Sabbath before the departure of the apostles and the new corps of evangelists on the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Jesus spoke in the Capernaum synagogue on the “Joys of Righteous Living.”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 large group of those who were maimed, halt, sick, and afflicted crowded up around him, seeking healing. Also in this group were the apostles, many of the new evangelists, and the Pharisaic spies from Jerusalem. Everywhere that Jesus went (except when in the hills about the Father’s business) the six Jerusalem spies were sure to follow.

148:7.2 (1665.1) The leader of the spying Pharisees, as Jesus stood talking to the people, induced a man with a withered hand to approach him and ask if it would be lawful to be healed on the Sabbath day or should he seek help on another day. When Jesus saw the man, heard his words, and perceived that he had been sent by the Pharisees, he said: “Come forward while I ask you a question. If you had a sheep and it should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day, would you reach down, lay hold on it, and lift it out? Is it lawful to do such things on the Sabbath day?” And the man answered: “Yes, Master, it would be lawful thus to do well on the Sabbath day.” Then said Jesus, speaking to all of them: “I know wherefore you have sent this man into my presence. You would find cause for offense in me if you could tempt me to show mercy on the Sabbath day. In silence you all agreed that it was lawful to lift the unfortunate sheep out of the pit, even on the Sabbath, and I call you to witness that it is lawful to exhibit loving-kindness on the Sabbath day not only to animals but also to men.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I proclaim that it is lawful to do good to men on the Sabbath day.” And as they all stood before him in silence, Jesus, addressing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said: “Stand up here by my side that all may see you. And now that you may know that it is my Father’s will that you do good on the Sabbath day, if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I bid you stretch out your hand.”

148:7.3 (1665.2) And as this man stretched forth his withered hand, it was made whole. The people were minded to turn upon the Pharisees, but Jesus bade them be calm, saying: “I have just told you that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to save life, but I did not instruct you to do harm and give way to the desire to kill.” The angered Pharisees went away, and notwithstanding it was the Sabbath day, they hastened forthwith to

만들기 위해 그의 편견을 일으킬 만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평하라고 충고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조치든지 취하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적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한 첫 기적이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일을 **주님**이 행한 것은, 자신의 치유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안식일** 휴식을 무의미하게 제한시키는, 명백한 굴레를 전체 인류에게 씌우려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인 석공의 일로 돌아갔고, 치유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의로운 생애를 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8. 벳새다에서 마지막 주간

벳새다에 머물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 정탐꾼들은 **예수**와 그의 교훈에 대한 태도에서 많이 갈라서게 됐다. 세 명의 **바리새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젊고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의원인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실로암** 연못에서 **아브넬**에게 세례 받았다. 온 **예루살렘**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해졌고, 여섯 명의 **바리새인** 정탐꾼을 소환하기 위해, 심부름꾼들이 곧 **벳새다**로 파견됐다.

전에 있었던 **갈릴리** 여행에서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리스인**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부자 **유대인**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병자를 위한 병원은 물론이고, 철학과 종교를 공통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자기네 도시에 오도록, 다시 한 번 **예수**를 초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초청을 겸손하게 거절했다.

이 무렵에 **바그다드**로부터 **커메쓰**라고 하는, 최면에 빠지는 선지자가 **벳새다** 야영지에 도착했다. 선지자라고 소문난 이 사람은, 최면에 빠져서 꿈꾸다가 이상한 환상들을 봤고, 잠자다가 교란될 때 환상적인 꿈을 꿔다. 그는 야영지에서 상당한 소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스스로 '현혹되는' 이 위선자를 **열심당 시몬**이 다소 엄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중재하여 그가 며칠 동안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도록 허락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은, 그 가르침을 천국 복음에 비취 판단할 때 건전치 못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됐다. 그는 곧 **바그다드**로 돌아갔는데, 단지 여섯 명의 불안정하고 엉뚱한 사람만 데리고 갔다. **바그다드** 선지자를 위해 **예수**께서 중재에 나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자칭하는 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커메쓰**를 호수로 데리고 가서 여러 번 물속에 처넣은 후, 여기를 떠나라고--곧 스스로 야영지를 조직하고 건설하라고--충고했다.

Tiberias and took counsel with Herod,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rouse his prejudice in order to secure the Herodians as allies against Jesus. But Herod refused to take action against Jesus, advising that they carry their complaints to Jerusalem.

148:7.4 (1665.3) This is the first case of a miracle to be wrought by Jesus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of his enemies. And the Master performed this so-called miracle, not as a demonstration of his healing power, but as an effective protest against making the Sabbath rest of religion a veritable bondage of meaningless restrictions upon all mankind. This man returned to his work as a stone mason, proving to be one of those whose healing was followed by a life of thanksgiving and righteousness.

8. LAST WEEK AT BETHSAIDA

148:8.1 (1665.4) The last week of the sojourn at Bethsaida the Jerusalem spies became much divided in their attitude toward Jesus and his teachings. Three of these Pharisees were tremendously impressed by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Meanwhile, at Jerusalem, Abraham, a young and influential member of the Sanhedrin, publicly espoused the teachings of Jesus and was baptized in the pool of Siloam by Abner. All Jerusalem was agog over this event, and messenger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Bethsaida recalling the six spying Pharisees.

148:8.2 (1666.1) The Greek philosopher who had been won for the kingdom on the previous tour of Galilee returned with certain wealthy Jews of Alexandria, and once more they invited Jesus to come to their cit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joint school of philosophy and religion as well as an infirmary for the sick. But Jesus courteously declined the invitation.

148:8.3 (1666.2) About this time there arrived at the Bethsaida encampment a trance prophet from Bagdad, one Kirmeth. This supposed prophet had peculiar visions when in trance and dreamed fantastic dreams when his sleep was disturbed. He created a considerable disturbance at the camp, and Simon Zelotes was in favor of dealing rather roughly with the self-deceived pretender, but Jesus intervened and allowed him entire freedom of action for a few days. All who heard his preaching soon recognized that his teaching was not sound as judged by the gospel of the kingdom. He shortly returned to Bagdad, taking with him only a half dozen unstable and erratic souls. But before Jesus interceded for the Bagdad prophet, David Zebedee, with the assistance of a self-appointed committee, had taken Kirmeth out into the lake and, after repeatedly plunging him into the water, had advised him to depart hence — to

바로 그날, **페니키아** 여자 **벵 마리온**이 너무나 열광해서 정신을 잃었고,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다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뒤에, 친구들이 그 여자를 쫓아냈다.

예루살렘의 새 개종자인 **바리새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세상 재물 전체를 사도 기금으로 바쳤으며, 이 헌금은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 100명을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 **안드레**가 이미 야영지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사람은 집으로 가거나 전도자들을 따라서 **갈릴리**로 갈 준비를 했다.

9. 중풍 병자를 치유함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 사도, 전도자, 그리고 흠여지는 야영지(野營地)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여섯 명의 **바리새인**도, **세베대**의 집에서 넓고 큰 거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예수**의 전체 지상 생애에서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다. 이때, **주님**은 우기(雨期)에 이런 모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큰 방에 서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집은, **예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으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었다.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차고, 열성스런 경청자들로 완전히 둘러 싸여 있는 동안, 중풍병으로 오래 고난당하던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실려 왔다. 이 중풍 병자는, **예수**께서 **벳새다**를 떠나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주 최근에 온전하게 됐던 석공(石工) **아론**과 이야기한 후에, 치유를 간구할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실려 가기로 작정했다. 그의 친구들은 앞문과 뒷문을 통해서 **세베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람들로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중풍 병자는 실패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으며;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친구들에게 지시했고,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방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긴 후에 대담하게 그 병자를 침상채로 줄에 매달아 **주님**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예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중단했으며, 한편 방안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병자와 친구들의 인내심에 감탄했다. 중풍 병자가 말했다: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낫게 되기를 꼭 원합니다. 나는, 치유 받은 후에 바로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그의 잘못 보낸 인생으로 인해 생겼음에도, 이제 그의 신앙을 본 **예수**께서 그 중풍 병자에게

organize and build a camp of his own.

148:8.4 (1666.3) On this same day, Beth-Marion, a Phoenician woman, became so fanatical that she went out of her head and, after almost drowning from trying to walk on the water, was sent away by her friends.

148:8.5 (1666.4) The new Jerusalem convert, Abraham the Pharisee, gave all of his worldly goods to the apostolic treasury, and this contribution did much to make possible the immediate sending forth of the one hundred newly trained evangelists. Andrew had already announced the closing of the encampment, and everybody prepared either to go home or else to follow the evangelists into Galilee.

9. HEALING THE PARALYTIC

148:9.1 (1666.5) On Friday afternoon, October 1, when Jesus was holding his last meeting with the apostles, evangelists, and other leaders of the disbanding encampment, and with the six Pharisees from Jerusalem seated in the front row of this assembly in the spacious and enlarged front room of the Zebedee home, there occurred one of the strangest and most unique episodes of all Jesus' earth life. The Master was, at this time, speaking as he stood in this large room, which had been built to accommodate these gatherings during the rainy season. The house was entirely surrounded by a vast concourse of people who were straining their ears to catch some part of Jesus' discourse.

148:9.2 (1666.6) While the house was thus thronged with people and entirely surrounded by eager listeners, a man long afflicted with paralysis was carried down from Capernaum on a small couch by his friends. This paralytic had heard that Jesus was about to leave Bethsaida, and having talked with Aaron the stone mason, who had been so recently made whole, he resolved to be carried into Jesus' presence, where he could seek healing. His friends tried to gain entrance to Zebedee's house by both the front and back doors, but too many people were crowded together. But the paralytic refused to accept defeat; he directed his friends to procure ladders by which they ascended to the roof of the room in which Jesus was speaking, and after loosening the tiles, they boldly lowered the sick man on his couch by ropes until the afflicted one rested on the floor immediately in front of the Master. When Jesus saw what they had done, he ceased speaking, while those who were with him in the room marveled at the perseverance of the sick man and his friends. Said the paralytic: "Master, I would not disturb your teaching, but I am determined to be made whole. I am not like those who received healing and immediately forgot your teaching. I

말씀했다: “애야, 두려워 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서기관 및 율법사들과 함께 **예수**의 이 발표를 듣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지는 것을 **예수**께서 영으로 감지하고 말씀했다: “너희 심정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기에 나를 비판하는 자리에 앉느냐? 내가 이 중풍 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자, 중풍 병자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길을 비켜주자, 모두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자가 놀랐다. **베드로**가 무리를 해산시켰으나, 그렇게 기이한 일들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 무렵에, **산헤드린**의 심부름꾼들이 여섯 정탐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갖고 도착했다. 그들이 이 전갈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토의가 끝난 후에, 우두머리와 그 동역자 중에서 두 사람이 심부름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세 명의 **바리새인** 정탐꾼은 **예수**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호수로 가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천국의 자녀가 된 그들을 사도들이 친구로 받아들였다.

would be made whole that I might serve in the kingdom of heaven.” Now, notwithstanding that this man’s affliction had been brought upon him by his own misspent life, Jesus, seeing his faith, said to the paralytic: “Son, fear not; your sins are forgiven. Your faith shall save you.”

148:9.3 (1667.1) When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together with other scribes and lawyers who sat with them, heard this pronouncement by Jesus, they began to say to themselves: “How dare this man thus speak? Does he not understand that such words are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 but God?” Jesus, perceiving in his spirit that they thus reasoned within their own minds and among themselves, spoke to them, saying: “Why do you so reason in your hearts? Who are you that you sit in judgment over me? What is the difference whether I say to this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But that you who witness all this may finall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and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I will say to this afflicted man, Arise, take up your bed, and go to your own house.”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 paralytic arose, and as they made way for him, he walked out before them all. And those who saw these things were amazed. Peter dismissed the assemblage, while many prayed and glorified God, confessing that they had never before seen such strange happenings.

148:9.4 (1667.2) And it was about this time that the messengers of the Sanhedrin arrived to bid the six spies return to Jerusalem. When they heard this message, they fell to earnest debate among themselves; and after they had finished their discussions, the leader and two of his associates returned with the messengers to Jerusalem, while three of the spying Pharisees confessed faith in Jesus and, going immediately to the lake, were baptized by Peter and fellowshipped by the apostles as children of the kingdom.

제 149편. 2차 전도여행

⇨ 148

유랜시아 책

150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49편
2차 전도여행

섹션

소개

1.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2. 사람들의 태도
3.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4. 전도여행의 진행
5. 만족에 대한 교훈
6. “주를 두려워함”
7. 벳새다로 돌아감

PAPER 149

THE SECOND PREACHING TOU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Widespread Fame of Jesus
2. Attitude of the People
3. Hostility of the Religious Leaders
4. Progress of the Preaching Tour
5. Lesson Regarding Contentment
6. The “Fear of the Lord”
7. Returning to Bethsaida

소개

갈릴리에서 공적인 2차 전도여행은, 서기 28년 10월 3일 일요일에 시작됐고, 세 달 동안 계속되다가, 12월 30일에 끝났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새로 뽑은 117명의 전도자 단체와, 수많은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가다라, 프톨레마이오스, 야피아, 다바리따, 므깃도, 예즈릴, 스키토폴리스, 다리키아, 힌보, 가말라, 벳새다, 유리아**,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방문했다.

이 일요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새 전도자들에게 최종 책무를 제시해 달라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께** 청했으나, **주님**은 사양하면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말씀했다. 충분한 토의 끝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다. **야고보**의 말이 결론에 이르자,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나가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행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자격 있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이면, 내가 그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너희를 임명하겠다.”

INTRODUCTION

^{149:0.1 (1668.1)} THE seco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began on Sunday, October 3, A.D. 28, and continued for almost three months, ending on December 30. Participating in this effort were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assisted by the newly recruited corps of 117 evangelists and by numerous other interested persons. On this tour they visited Gadara, Ptolemais, Japhia, Dabaritta, Megiddo, Jezreel, Scythopolis, Tarichea, Hippos, Gamala, Bethsaida-Julias, and many other cities and villages.

^{149:0.2 (1668.2)} Before the departure on this Sunday morning Andrew and Peter asked Jesus to give the final charge to the new evangelists, but the Master declined, saying that it was not his province to do those things which others could acceptably perform. After due deliberation it was decided that James Zebedee should administer the charge. At the conclusion of James's remarks Jesus said to the evangelists: “Go now forth to do the work as you have been charged, and later on, when you have shown yourselves competent and faithful, I will ordain you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번 여행에서는 **아고보**와 **요한**만이 **예수**와 함께 이동했다.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은 각각 약 열두 명에 달하는 전도자를 함께 데리고 다녔으며,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 사도들은, 신자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는 즉시 세례를 베풀고자 했다. **예수**와 두 동행자는 이 세 달 동안 광범하게 여행했는데, 때로는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자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천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용기를 북돋아 줬다. 이 2차 전도여행 전체는 주로, 새로 훈련받은 117명의 이 전도자 단체에게 실질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 기간 내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마침내 출발할 때까지, **세베대의 아들 다윗**은 천국 업무를 위한 상설 본부를, **벳새다**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꾸려나갔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업무를 위한 정보 교환소였고, **다윗**이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과 주변 지역들 사이에 진행했던 심부름꾼 봉사를 위한 교대 장소였다. 그는 **안드레**의 승인만 얻어서 자신의 결단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다윗**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천국 업무에서 이 정보 분야에 40에서 50명의 심부름꾼을 고용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동안, 그는 예전의 고기잡이 일에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일부나마 경비를 충당했다.

1.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벳새다 야영지가 해산될 무렵에는, **예수**의 명성, 특히 치유자로서의 명성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위시해서 **시리아**와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그들이 **벳새다**를 떠난 후에도 여러 주 동안 병자들이 계속 거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이 있는 곳을 **다윗**에게서 알아낸 후에 그를 찾아가곤 했다. **예수**께서는 이 여행에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치유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난당하는 수십 명이, 치유를 추구하도록 자신을 재촉한 끈질긴 신앙에서 나오는 재건하는 능력의 결과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

이 사명을 수행하던 무렵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나머지 생애 내내 계속-- 이상하고 설명되지 않는 일련의 치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세 달 동안의 여행 도중에, **유대지방**, **이두메**, **갈릴리**, **시리아**, **두로**, **시돈**, 및 **요단강** 너머에 있는 지방에서 온 100명 이상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예수**의 이런 무의식 치유의 혜택을 입었으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명성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리고 자생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149:0.3 (1668.3) On this tour only James and John traveled with Jesus.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each took with them about one dozen of the evangelists and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them while they carried on their work of preaching and teaching. As fast as believers were ready to enter the kingdom, the apostles would administer baptism. Jesus and his two companions traveled extensively during these three months, often visiting two cities in one day to observe the work of the evangelists and to encourage them in their efforts to establish the kingdom. This entire second preaching tour was principally an effort to afford practical experience for this corps of 117 newly trained evangelists.

149:0.4 (1668.4) Throughout this period and subsequently, up to the time of the final departure of Jesus and the twelve for Jerusalem, David Zebedee maintained a permanent headquarters for the work of the kingdom in his father's house at Bethsaida. This was the clearinghouse for Jesus' work on earth and the relay station for the messenger service which David carried on between the workers in various parts of Palestine and adjacent regions. He did all of this on his own initiative but with the approval of Andrew. David employed forty to fifty messengers in this intelligence division of the rapidly enlarging and extending work of the kingdom. While thus employed, he partially supported himself by spending some of his time at his old work of fishing.

1. THE WIDESPREAD FAME OF JESUS

149:1.1 (1668.5) By the time the camp at Bethsaida had been broken up, the fame of Jesus, particularly as a healer, had spread to all parts of Palestine and through all of Syria and the surrounding countries. For weeks after they left Bethsaida, the sick continued to arrive, and when they did not find the Master, on learning from David where he was, they would go in search of him. On this tour Jesus did not deliberately perform any so-called miracles of healing. Nevertheless, scores of afflicted found restoration of health and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reconstructive power of the intense faith which impelled them to seek for healing.

149:1.2 (1669.1) There began to appear about the time of this mission —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remainder of Jesus' life on earth — a peculiar and unexplained series of healing phenomena. In the course of this three months' tour more than one hundred men, women, and children from Judea, Idumea, Galilee, Syria, Tyre, and Sidon, and from beyond the Jordan were beneficiaries of this unconscious healing by Jesus and, returning to their homes, added to the enlargement of Jesus'

것을 볼 때마다, 혜택을 입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직접 지시했음에도, 그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임의로 일어나는, 즉 무의식적인 이런 치유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도들에게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다만 몇 번의 경우에,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했을 뿐이다. 한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주님은 “생기(生氣)가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했다.

이런 무의식 치유의 본질에 관해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체님은 일인 줄 알지만, 그런 모든 치유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의 이 세상 사역 도중에 일어났던, 이런 외견상 치유 기적 가운데 다수는,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합된 영향이 공존한 결과였던 것 같다:

1. 그런 치유가 순수한 육체적 회복보다는 영적 혜택을 갈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치유 받기를 갈망하는 인간 심성에 있는 강하고 우세하고 생생한 신앙이 현존함.

2. 인간의 그런 신앙과 공존하는,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 능력과 특권을 그의 인격자 안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 하고 자비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의 큰 동정심과 연민이 실존함.

3. 피조물의 신앙과 창조자의 생애와 더불어, 이 하나님_사람이 아버지 뜻의 의인화된 표현이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인간의 필요와 그것을 만족시키는 신성한 능력이 접촉할 때, 아버지께서 다르게 뜻하지 않으면, 그 둘이 하나가 됐고, 인간 예수께서는 치유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에게는 즉각 인식됐다. 다수의 이런 치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오래 알아온 위대한 법칙, 즉 창조주 아들이 원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법칙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견은, 그때, 예수께서 몸소 현존하는 앞에서,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매우 가깝게 연합돼 있던 어떤 창조 세력 및 우주 인격체들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심오한 인간 신앙이, 글자 그대로 그리고 정말로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주, 자신이 보는 앞에서, 병든 사람이 강렬한 개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하셨음이, 기록된 사실대로다.

fame. And they did this notwithstanding that Jesus would, every time he observed on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directly charge the beneficiary to “tell no man.”

149:1.3 (1669.2) It was never revealed to us just what occurred in these cases of spontaneous or unconscious healing. The Master never explained to his apostles how these healings were effected, other than that on several occasions he merely said,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forth from me.” On one occasion he remarked when touched by an ailing child, “I perceive that life has gone forth from me.”

149:1.4 (1669.3) In the absence of direct word from the Master regarding the natur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it would be presuming on our part to undertake to explain how they were accomplished, but it will be permissible to record our opinion of all such healing phenomena. We believe that many of these apparent miracles of healing, as they occurred in the course of Jesus' earth ministry, were the result of the coexistence of the following three powerful, potent, and associated influences:

149:1.5 (1669.4) 1. The presence of strong, dominant, and living faith in the heart of the human being who persistently sought healing, together with the fact that such healing was desired for its spiritual benefits rather than for purely physical restoration.

149:1.6 (1669.5) 2. The existence, concomitant with such human faith, of the great sympathy and compassion of the incarnated and mercy-dominated Creator Son of God, who actually possessed in his person almost unlimited and timeless creative healing powers and prerogatives.

149:1.7 (1669.6) 3. Along with the faith of the creature and the life of the Creato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is God-man was the personified expression of the Father's will. If, in the contact of the human need and the divine power to meet it, the Father did not will otherwise, the two became one, and the healing occurred unconsciously to the human Jesus but was immediately recognized by his divine nature. The explanation, then, of many of these cases of healing must be found in a great law which has long been known to us, namely, What the Creator Son desires and the eternal Father wills IS.

149:1.8 (1669.7) It is, then, our opinion that, in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certain forms of profound human faith were literally and truly compelling in the manifestation of healing by certain creative forces and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who were at that time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e Son of Man. It therefore becomes a fact of record that Jesus did frequently suffer men to heal themselves in his presence by their powerful, personal faith.

다른 많은 사람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치유를 추구했다. **두로**의 부유한 과부가 시종들과 함께 질병을 치유 받으러 왔었는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으며; 그 여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돌아가기라도 한다는 듯이, **갈릴리** 지방 여기저기서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계속 점점 더 많은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 여자는 천국 복음에는 한 번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으며; 그 여자가 추구한 것은 육신의 질병 치료뿐이었다.

2. 사람들의 태도

예수께서는 사람의 정신을 이해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며, 그의 교훈이 그가 제시한대로 간직됐더라면, 그에 관한 유일한 해설서가 그의 이 세상 생애로 인해 제공된 영감 어린 설명일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가 신속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의 교훈을, 특정한 민족, 종족, 및 종교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고 초기 추종자들이 애쓴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모든 다른 민족, 종족, 및 종교가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교훈이 당시의 특정한 집단에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지침과 훈계를 주는 많은 편지를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런 글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의 교훈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수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다른 종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에 더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또한 많이 포함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로부터 온 여러 교훈과 많은 **그리스** 철학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 외에도,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1. **그리스도교**의 속죄 교리가--곧 **예수**께서 **아버지**의 엄격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신성한 분노를 완화시켜주는 희생양 **아들**이라는 가르침이-- 설명하듯이,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유대** 신학에 연결시키려는 노력. 이런 교훈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천국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려는 가혹한 노력에서 나왔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이런 노력은 실패했지만, 모든 후세 세대에서 많은 정직한 혼을 혼란시키고 파도리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2. **주님**의 초기 추종자들의 두 번째 큰 실수, 그리고 모든 후세 세대가 지속적으로 범한 실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아주 온통 **예수**라는 **인격자**에 관한 것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예수**의 인간성에 관한 이런 과잉 강

149:1.9 (1670.1) Many others sought healing for wholly selfish purposes. A rich widow of Tyre, with her retinue, came seeking to be healed of her infirmities, which were many; and as she followed Jesus about through Galilee, she continued to offer more and more money, as if the power of God were something to be purchased by the highest bidder. But never would she become interest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was only the cure of her physical ailments that she sought.

2. ATTITUDE OF THE PEOPLE

149:2.1 (1670.2) Jesus understood the minds of men. He knew what was in the heart of man, and had his teachings been left as he presented them, the only commentary being the inspired interpretation afforded by his earth life, all nations and all religions of the world would speedily have embrace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well-meant efforts of Jesus' early followers to restate his teachings so as to make them the more acceptable to certain nations, races, and religions, only resulted in making such teachings the less acceptable to all other nations, races, and religions.

149:2.2 (1670.3) The Apostle Paul, in his efforts to bring the teachings of Jesus to the favorable notice of certain groups in his day, wrote many letters of instruction and admonition. Other teachers of Jesus' gospel did likewise, but none of them realized that some of these writings would subsequently be brought together by those who would set them forth as the embodiment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so, while so-called Christianity does contain more of the Master's gospel than any other religion, it does also contain much that Jesus did not teach. Aside from the incorporation of many teachings from the Persian mysteries and much of the Greek philosophy into early Christianity, two great mistakes were made:

149:2.3 (1670.4) 1. The effort to connect the gospel teaching directly onto the Jewish theology, as illustrated by the Christian doctrines of the atonement — the teaching that Jesus was the sacrificed Son who would satisfy the Father's stern justice and appease the divine wrath. These teachings originated in a praiseworthy effort to make the gospel of the kingdom more acceptable to disbelieving Jews. Though these efforts failed as far as winning the Jews was concerned, they did not fail to confuse and alienate many honest souls in all subsequent generations.

149:2.4 (1670.5) 2. The second great blunder of the Master's early followers, and one which all subsequent generations have persisted in perpetuating, was to organize the Christian teaching so completely about the *person* of Jesus.

조가 그의 교훈을 애매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 **모하멧 교도**, **힌두인**, 그리고 **동방**의 다른 종교가들이 **예수**의 교훈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종교에서, **예수**라는 인격자의 위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그런 배려가 그의 영감 어린 생애를 덮어버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 즉: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대신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공통으로 유지되는 진리를(많은 것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에 접근하는 동시에,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를 삼가야 한다.

그런 독특한 시기에, **예수**의 명성은 주로 치유자로서의 평판에 의거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 도움을 구하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의 흥미를 즉시 직접 가장 많이 끈 것은 역시 육신의 치유였다. 도덕적으로 예측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희생자들이 점점 더 **예수**를 찾았으며, 그는 구원되는 길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냈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인류의 슬픔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그의 보살핌을 구하는 자들을 항상 도와왔다.

창조주 자신이 필자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별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런 소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게 접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초물질 행동을 실행한 유일한 종교 창시자임에도, 이런 경고는 정당하다.

이 세상에서 **미가엘**의 사명 가운데 가장 놀랍고 혁명적인 부분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다.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아는 척 하지 않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께서는 3차 **갈릴리** 여행과 관련하여 여자들이 감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따라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기보다 차라리 태워버림이 더 낫다”는 율법학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만큼 최고의 용기를 가졌다.

예수께서는 한 세대 만에, 멀리 당하고 잊혀진 상태에서, 또한 그 시대의 노예 같은 고역에서 여자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감히 **예수**의 이름을

This overemphasis of the personality of Jesus in the theology of Christianity has worked to obscure his teachings, and all of this has mad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Jews, Mohammedans, Hindus, and other Eastern religionists to accept the teachings of Jesus. We would not belittle the place of the person of Jesus in a religion which might bear his name, but we would not permit such consideration to eclipse his inspired life or to supplant his saving message: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149:2.5 (1670.6) The teachers of the religion of Jesus should approach other religio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truths which are held in common (many of which com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Jesus' message) while they refrain from placing so much emphasis on the differences.

149:2.6 (1671.1) While, at that particular time, the fame of Jesus rested chiefly upon his reputation as a healer, it does not follow that it continued so to rest. As time passed, more and more he was sought for spiritual help. But it was the physical cures that made the most direct and immediate appeal to the common people. Jesus was increasingly sought by the victims of moral enslavement and mental harassments, and he invariably taught them the way of deliverance. Fathers sought his advi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ir sons, and mothers came for help in the guidance of their daughters. Those who sat in darkness came to him, and he revealed to them the light of life. His ear was ever open to the sorrows of mankind, and he always helped those who sought his ministry.

149:2.7 (1671.2) When the Creator himself was on earth,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t was inevitable that some extraordinary things should happen. But you should never approach Jesus through these so-called miraculous occurrences. Learn to approach the miracle through Jesus,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approaching Jesus through the miracle. And this admonition is warranted, notwithstanding that Jesus of Nazareth is the only founder of a religion who performed supermaterial acts on earth.

149:2.8 (1671.3) The most astonishing and the most revolutionary feature of Michael's mission on earth was his attitude toward women. In a day and generation when a man was not supposed to salute even his own wife in a public place, Jesus dared to take women along as teachers of the gospel in connection with his third tour of Galilee. And he had the consummate courage to do this in the face of the rabbinic teaching which declared that it was “better that the words of the law should be burned than delivered to women.”

149:2.9 (1671.4) In one generation Jesus lifted women out of the disrespectful oblivion and the slavish drudgery of the ages. And it is the one shameful

취하고자 하는 그 종교가, 그 후에 여자들에 대한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를만한 도덕적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예수**께서 그 시대의 미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종교적 편견이 없었으며; 결코 편협함이 없었다. 사회적 적대감과 비슷한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선조의 종교에서 좋은 점은 따르는 반면, 사람이 만든 미신과 속박의 전통을 무시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자연의 큰 재해, 시간세계의 사고, 그리고 다른 비참한 사건은, 신성한 심판이나 **섭리**의 신비스러운 처방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가르쳤다. 의미 없는 예식절차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했고, 물질적인 경배의 오류를 폭로했다. 그는 사람의 영적 해방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육신에 속하는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청결한 손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진정한 종교의 표시라고 용감하게 선언했을 때, **예수**께서는 선조의 모든 교훈을 뛰어넘었다. 전통 대신 현실을 존중했고, 허영과 위선의 모든 걸치레를 부정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의 말을 하거나, 당시의 종교, 사회, 경제, 및 정치 관례를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투쟁적 혁명가가 아니었으며; 점진적 진화를 주장하는 이였다. 그가, **왜**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한 것은, 오직 그렇게 **왜**야하는 뛰어난 일을 동료들에게 동시에 제시했을 때뿐이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순종을 받았다. 그에게 직접 부르심 받았던 사람 가운데 단지 세 사람만이, 제자신분으로 초청받기를 거절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힘을 발휘했지만, 독재적이지 않았다. 신용을 요구했으며, 누구도 그의 요구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절대 권위를 행사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이 그를 **주님**으로 부르도록 허락했다.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에 빠진 자들, 또는 그의 교훈에서 정치적 위험을 식별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권위에 감탄했으며, 우둔하고 성가신 질문자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경탄했다.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희망과 확신을 심어 줬다. 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 그를 두려워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매달리기로 작정해왔던 악과 오류를 뒤집어엎게 돼있는 진리를 그가 옹호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그를 미워했다.

thing about the religion that presumed to take Jesus' name that it lacked the moral courage to follow this noble example in its subsequent attitude toward women.

149:2.10 (1671.5) As Jesus mingled with the people, they found him entirely free from the superstitions of that day. He was free from religious prejudices; he was never intolerant. He had nothing in his heart resembling social antagonism. While he complied with the good in the religion of his fathers, he did not hesitate to disregard man-made traditions of superstition and bondage. He dared to teach that catastrophes of nature, accidents of time, and other calamitous happenings are not visitations of divine judgments or mysterious dispensations of Providence. He denounced slavish devotion to meaningless ceremonials and exposed the fallacy of materialistic worship. He boldly proclaimed man's spiritual freedom and dared to teach that mortals of the flesh are indeed and in truth sons of the living God.

149:2.11 (1671.6) Jesus transcended all the teachings of his forebears when he boldly substituted clean hearts for clean hands as the mark of true religion. He put reality in the place of tradition and swept aside all pretensions of vanity and hypocrisy. And yet this fearless man of God did not give vent to destructive criticism or manifest an utter disregard of the religiou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sages of his day. He was not a militant revolutionist; he was a progressive evolutionist. He engaged in the destruction of that which was only when he simultaneously offered his fellows the superior thing which *ought to be*.

149:2.12 (1672.1) Jesus received the obedience of his followers without exacting it. Only three men who received his personal call refused to accept the invitation to discipleship. He exercised a peculiar drawing power over men, but he was not dictatorial. He commanded confidence, and no man ever resented his giving a command. He assumed absolute authority over his disciples, but no one ever objected. He permitted his followers to call him Master.

149:2.13 (1672.2) The Master was admired by all who met him except by those who entertained deep-seated religious prejudices or those who thought they discerned political dangers in his teachings. Men were astonished at the originality and authoritativeness of his teaching. They marveled at his patience in dealing with backward and troublesome inquirers. He inspired hope and confidence in the hearts of all who came under his ministry. Only those who had not met him feared him, and he was hated only by those who regarded him as the champion of that truth which was destined to overthrow the evil and error which they had determined to hold in their hearts at all cost.

그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강력하고 기묘하게 매혹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사람이, 단지 그의 우아한 말을 듣고 그의 간결한 생활을 보기 위해, 몇 주 동안 따라다니곤 했다. 헌신하는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 애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진실인데: 오늘날에도, 그리고 모든 미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3.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보통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교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과 적대감을 품게 됐다. **바리새인**은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신학을 형성했다. **예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 조직적인 선생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의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비유를 들어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했을 때, 그 목적을 위하여, 이야기의 단 한 가지 특색만 사용했다. 그의 비유에서 우화(寓話)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함으로써, **예수**의 교훈에 관한 많은 잘못된 관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에 젊은 **아브라함**이 개종했던 사건의 결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갈릴리**의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전도자들과 함께 나가 있는 세 정탐꾼이 탈퇴한 사건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해 점점 더 눈이 멀었으며, 한편으로는 천국 복음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를 계속 배척함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다. 사람들에게 내주하는 영의 호소에 귀를 막을 때, 그 태도를 변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수께서 **벳새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강연을 마치면서 말씀했다: “너희는 육체와 정신속에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한결같은** 것은 내주하는 영이다. 체험의 본질과 정도가 다소 다를지라도, 신성한 영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한결같이 반응한다. 인류는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영에게 호소함으로써만, 언제라도 하나가 되고 형제관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다수는 복음의 영적 호소에 마음 문을 닫았다. 그들은 이날부터 계속, **주님**을 없애려는 계획과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 범죄자, 즉 **유대**의 신성시되는 율법의 주요 교훈을 어긴 자로서 **예수**를 체포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처형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149:2.14 (1672.3) On both friends and foes he exercised a strong and peculiarly fascinating influence. Multitudes would follow him for weeks, just to hear his gracious words and behold his simple life. Devoted men and women loved Jesus with a well-nigh superhuman affection. And the better they knew him the more they loved him. And all this is still true; even today and in all future ages, the more man comes to know this God-man, the more he will love and follow after him.

3. HOSTILITY OF THE RELIGIOUS LEADERS

149:3.1 (1672.4) Notwithstanding the favorable reception of Jesus and his teachings by the common people,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became increasingly alarmed and antagonistic. The Pharisees had formulated a systematic and dogmatic theology. Jesus was a teacher who taught as the occasion served; he was not a systematic teacher. Jesus taught not so much from the law as from life, by parables. (And when he employed a parable for illustrating his message, he designed to utilize just *one* feature of the story for that purpose. Many wrong ideas concerning the teachings of Jesus may be secured by attempting to make allegories out of his parables.)

149:3.2 (1672.5)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were becoming well-nigh frantic as a result of the recent conversion of young Abraham and by the desertion of the three spies who had been baptized by Peter, and who were now out with the evangelists on this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The Jewish leaders were increasingly blinded by fear and prejudice, while their hearts were hardened by the continued rejection of the appeal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men shut off the appeal to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them, there is little that can be done to modify their attitude.

149:3.3 (1672.6) When Jesus first met with the evangelists at the Bethsaida camp, in concluding his address, he said: “You should remember that in body and mind — emotionally — men react individually. The only uniform thing about men is the indwelling spirit. Though divine spirits may vary somewhat i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ir experience, they react uniformly to all spiritual appeals. Only through, and by appeal to, this spirit can mankind ever attain unity and brotherhood.” But many of the leaders of the Jews had closed the doors of their hearts to the spiritual appeal of the gospel. From this day on they ceased not to plan and plot for the Master’s destruction. They were convinced that Jesus must be apprehended, convicted, and executed as a religious offender, a violator of the cardinal teachings of the Jewish sacred law.

4. 전도여행의 진행

예수께서는, 이 전도여행에서 대중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우연히 머물게 된 대부분의 도시나 동네에서 밤에 신자 {信者}들에게 여러 차례 강의했다. 이런 저녁 수업 시간 중에 한 번은, 나이 어린 전도자가 분노에 관하여 **예수**께 질문했고, **주님**이 다른 것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분노는 대체로, 혼합된 지적 및 육체적 본성을 영적 본성이 통제하지 못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증상이다. 분노는, 너그러운 형제다운 사랑이 모자라고, 자존감과 자기 통제에 모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정신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람의 혼을 가르치는 영 선생을 무력하게 만든다. ‘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분노해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리고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이런 말도 잘 알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한다.’ ‘신중함이 분노를 지연시킨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성벽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난폭하다.’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격노 하는 자는 계명을 많이 어기게 된다.’ ‘영으로 조급하지 마라, 분노가 우매자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했다: “사랑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동물적 분노를 발하는 경향으로부터, 영 안내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라.”

바로 이 경우에, **주님**은 균형 잡힌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관해 그 무리에게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직업에 숙련되기까지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전문화하고, 일생의 활동을 편협하게 만들고 제한하는 모든 경향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어떤 장점이든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수**께서는 항상 절제를 설교했고, 일관성--곧 삶의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가르쳤다. 과잉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 불안감으로 퇴보할지도 모르며; 그 열성이 광신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예수**께서는 옛 동역자 가운데 하나에 관하여, 그의 상상력이 그를 몽상적이고 비실제적인 이행업무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지나친 보수적 진부함은 둔감한 자가 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

4. PROGRESS OF THE PREACHING TOUR

149:4.1 (1673.1) Jesus did very little public work on this preaching tour, but he conducted many evening classes with the believers in most of the cities and villages where he chanced to sojourn with James and John. At one of these evening sessions one of the younger evangelists asked Jesus a question about anger, and the Master, among other things, said in reply:

149:4.2 (1673.2) “Anger is a material manifestation which represents, in a general way, the measure of the failure of the spiritual nature to gain control of the combined intellectual and physical natures. Anger indicates your lack of tolerant brotherly love plus your lack of self-respect and self-control. Anger depletes the health, debases the mind, and handicaps the spirit teacher of man’s soul.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that ‘wrath kills the foolish man,’ and that man ‘tears himself in his anger’? That ‘he who is slow of wrath is of great understanding,’ while ‘he who is hasty of temper exalts folly’? You all know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and how ‘grievous words stir up anger.’ ‘Discretion defers anger,’ while ‘he who has no control over his own self is like a defenseless city without walls.’ ‘Wrath is cruel and anger is outrageous.’ ‘Angry men stir up strife, while the furious multiply their transgressions.’ ‘Be not hasty in spirit, for anger rests in the bosom of fools.’” Before Jesus ceased speaking, he said further: “Let your hearts be so dominated by love that your spirit guide will have little trouble in delivering you from the tendency to give vent to those outbursts of animal anger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status of divine sonship.”

149:4.3 (1673.3) On this same occasion the Master talked to the group about the desirability of possessing well-balanced characters. He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for most men to devote themselves to the mastery of some vocation, but he deplored all tendency toward overspecialization, toward becoming narrow-minded and circumscribed in life’s activities.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any virtue, if carried to extremes, may become a vice. Jesus always preached temperance and taught consistency — proportionate adjustment of life problems. He pointed out that overmuch sympathy and pity may degenerate into serious emotional instability; that enthusiasm may drive on into fanaticism. He discussed one of their former associates whose imagination had led him off into visionary and impractical undertakings. At the same time he warned them against the dangers of the dullness of overconservative mediocrity.

149:4.4 (1673.4) And then Jesus discoursed on the dangers of courage and faith, how they sometimes

는 어떻게 지각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신중함과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들이 어떻게 비겁함과 실패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듣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되는 모든 경향을 피하고, 독창성을 가지라고 권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 하지 않는 경건함을 갖도록 호소했다. 두려움과 미신에 구속받지 않는 경의를 가르쳤다.

동역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균형 잡힌 성품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생애 자체가 그 가르침의 감동적인 본보기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압박과 격동 한가운데서 살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적들은 계속해서 그의 앞에 덫을 놓았지만, 그는 결코 걸려들지 않았다. 교활하고 박식한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논쟁에 휩쓸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교화를 주고, 위엄 있으며, 또한 확정적이었다. 여러 종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강론이 중단됐을 때에도, 그의 대답은 항상 의미심장하고 결정적이었다. 적들의 계속된 압력에 맞서면서, 그는 결코 비열한 전략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거짓되고 부당하며 불의한 방법을 써서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많은 남녀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어떤 분명한 업무에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인생에 대해 폭넓은 문화적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 높은 사람이라면, 동료들의 삶과 활동을 모르고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5. 만족에 대한 교훈

열심당 시몬과 함께 일하던 전도자 집단을 **예수**께서 방문했을 때, 저녁 회담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지요? 만족은 종교 체험의 문제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께서 **시몬**의 질문에 대답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남들보다 더 행복해 한다. 사람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을 그 자신이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에, 많이, 아주 많이 달려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인데,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살핀다’고 현자가 한 말을 너는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그런 영으로 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했다: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그렇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한 의인의 작은 재산이 여러 악인의 풍부한 재산보다 크다.’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즐거움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항상 잔칫

lead unthinking souls on to recklessness and presumption. He also showed how prudence and discretion, when carried too far, lead to cowardice and failure. He exhorted his hearers to strive for originality while they shunned all tendency toward eccentricity. He pleaded for sympathy without sentimentality, piety without sanctimoniousness. He taught reverence free from fear and superstition.

149:4.5 (1674.1) It was not so much what Jesus taught about the balanced character that impressed his associates as the fact that his own life was such an eloquent exemplification of his teaching. He lived in the midst of stress and storm, but he never wavered. His enemies continually laid snares for him, but they never entrapped him. The wise and learned endeavored to trip him, but he did not stumble. They sought to embroil him in debate, but his answers were always enlightening, dignified, and final. When he was interrupted in his discourses with multitudinous questions, his answers were always significant and conclusive. Never did he resort to ignoble tactics in meeting the continuous pressure of his enemies, who did not hesitate to employ every sort of false, unfair, and unrighteous mode of attack upon him.

149:4.6 (1674.2) While it is true that many men and women must assiduously apply themselves to some definite pursuit as a livelihood vocation, it is nevertheless wholly desirable that human beings should cultivate a wide range of cultural familiarity with life as it is lived on earth. Truly educated persons are not satisfied with remaining in ignorance of the lives and doings of their fellows.

5. LESSON REGARDING CONTENTMENT

149:5.1 (1674.3) When Jesus was visiting the group of evangelists working under the supervision of Simon Zelotes, during their evening conference Simon asked the Master: “Why are some persons so much more happy and contented than others? Is contentment a matter of religious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Jesus said in answer to Simon’s question:

149:5.2 (1674.4) “Simon, some persons are naturally more happy than others. Much, very much, depends upon the willingness of man to be led and directed by the Father’s spirit which lives within him.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the words of the wise man, ‘The spirit of man is the candle of the Lord,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s’? And also that such spirit-led mortals say: ‘The lines are fallen to me in pleasant places; yes, I have a goodly heritage.’ ‘A little that a righteous man has is better than the riches of many wicked,’ for ‘a good man shall be satisfied from within himself.’ ‘A merry heart makes a cheerful

날이다. 재물이 적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한 움큼 밖에 없지만 평온한 것이, 남아돌지만 영이 슬프고 속상한 것보다 낫다.’

“사람의 슬픔 대부분은,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상처 받는 데서 나온다. 이 세상 생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의무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람의 허다한 근심거리는 모두, 자신의 평상시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토양에서 기원된다. ‘악인은 좇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한다.’ ‘악인은 안정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거짓 평강과 일시적인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만족, 및 최상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신앙의 확신과 아들신분에 대한 보증을 구하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도 “눈물 골짜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을, 오히려 **낙원** 상승을 이루는 영원하고 영생하는 영들이 탄생하는 장소, 즉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6. “주를 두려워함”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담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성서**에서는 ‘**주**{主}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했다:

“얘야,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람이 단지 두려움을 통해서 경의{敬意}를 배울 수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그리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아들로써 다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보답하도록 이끌어서, 너희가 **영원자**를 경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 한다. 노예근성의 두려움으로 너희를 몰아가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_하나님**을 따분하게 예배드리게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_아들의 관계임을 일깨워서, 사랑 많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_하나님**께, 숭고하고 탁월하게 자유로운 경배를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려고 한다.

countenance and is a continual feast. Better is a little with the reverence of the Lord than great treasure and trouble therewith. Better is a dinner of herbs where love is than a fatted ox and hatred therewith.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revenues without rectitude.’ ‘A merry heart does good like a medicine.’ ‘Better is a handful with composure than a superabundance with sorrow and vexation of spirit.’

149:5.3 (1674.5) “Much of man’s sorrow is born of the disappointment of his ambitions and the wounding of his pride. Although men owe a duty to themselves to make the best of their lives on earth, having thus sincerely exerted themselves, they should cheerfully accept their lot and exercise ingenuity in making the most of that which has fallen to their hands. All too many of man’s troubles take origin in the fear soil of his own natural heart. ‘The wicked flee when no man pursues.’ ‘The wicked are like the troubled sea, for it cannot rest, but its waters cast up mire and dirt; there is no peace, says God, for the wicked.’

149:5.4 (1674.6) “Seek not, then, for false peace and transient joy but rather for the assurance of faith and the sureties of divine sonship which yield composure, contentment, and supreme joy in the spirit.”

149:5.5 (1675.1) Jesus hardly regarded this world as a “vale of tears.” He rather looked upon it as the birth sphere of the eternal and immortal spirits of Paradise ascension, the “vale of soul making.”

6. THE “FEAR OF THE LORD”

149:6.1 (1675.2) It was at Gamala, during the evening conference, that Philip said to Jesus: “Master, why is it that the Scriptures instruct us to ‘fear the Lord,’ while you would have us look to the Father in heaven without fear? How are we to harmonize these teachings?” And Jesus replied to Philip, saying:

149:6.2 (1675.3) “My children, I am not surprised that you ask such questions. In the beginning it was only through fear that man could learn reverence, but I have come to reveal the Father’s love so that you will be attracted to the worship of the Eternal by the drawing of a son’s affectionate recognition and reciprocation of the Father’s profound and perfect love. I would deliver you from the bondage of driving yourselves through slavish fear to the irksome service of a jealous and wrathful King-God. I would instruct you in the Father-son relationship of God and man so that you may be joyfully led into that sublime and supernal free worship of a loving, just, and merciful Father-God.

“**주를 두려워함**”은 이어지는 여러 시대에 다른 의미를 가졌는데,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고통과 근심의 단계를 거쳐서 위엄과 경의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경의에서 시작하여, 인식, 깨달음, 및 감사함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사람이 **하나님**의 업적만 알아볼 때에는 **지존자**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는, 점차로 그런 선하고 완전하며 보편적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다.

“충명한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까 하여 그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한 좋은 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는 봉사로 이끌며;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이끌며;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적이고 진솔한 경배를 드리도록 이끈다.

“너희의 선조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신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영광스런 진리로 인해 그를 흠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고귀하고 의로우신 성품은, 경의, 사랑,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초대한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강력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공포 대신 신뢰로, 노예근성의 굴종과 무의미한 예식 대신 사랑의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에게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더욱 완전하게 비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한자**의 행하신 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가 **계심**으로 인해 찬미할 마음이 생긴다.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에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봉사와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에는, 이해심에서 나오는 존경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모가 행한 일보다는 그의 현존{現存}으로 인해 부모를 실제로 사랑하는 체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다가,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의존하고, 존경하는 수준을 거쳐서, 사랑을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149:6.3 (1675.4) “The ‘fear of the Lord’ has had different meanings in the successive ages, coming up from fear, through anguish and dread, to awe and reverence. And now from reverence I would lead you up, through recognition, realization, and appreciation, to love. When man recognizes only the works of God, he is led to fear the Supreme; but when man begin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 of the living God, he is led increasingly to love such a good and perfect, universal and eternal Father. And it is just this changing of the relation of man to God that constitutes the mission of the Son of Man on earth.

149:6.4 (1675.5) “Intelligent children do not fear their father in order that they may receive good gifts from his hand; but having already received the abundance of good things bestowed by the dictates of the father’s affection for his sons and daughters, these much loved children are led to love their father in responsive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of such munificent beneficence. The goodness of God leads to repentance; the beneficence of God leads to service; the mercy of God leads to salvation; while the love of God leads to intelligent and freehearted worship.

149:6.5 (1675.6) “Your forebears feared God because he was mighty and mysterious. You shall adore him because he is magnificent in love, plenteous in mercy, and glorious in truth. The power of God engenders fear in the heart of man, but the nobility and righteousness of his personality beget reverence, love, and willing worship. A dutiful and affectionate son does not fear or dread even a mighty and nobl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put love in the place of fear, joy in the place of sorrow, confidence in the place of dread, loving service and appreciative worship in the place of slavish bondage and meaningless ceremonies. But it is still true of those who sit in darkness that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But when the light has more fully come, the sons of God are led to praise the Infinite for what he is rather than to fear him for what he does.

149:6.6 (1675.7) “When children are young and unthinking, they must necessarily be admonished to honor their parents; but when they grow older and become somewhat more appreciative of the benefits of the parental ministry and protection, they are led up, through understanding respect and increasing affection, to that level of experience where they actually love their parents for what they are more than for what they have done. The father naturally loves his child, but the child must develop his love for the father from the fear of what the father can do, through awe, dread, dependence, and reverence, to the appreciative and affectionate regard of love.

149:6.7 (1676.1) “You have been taught that you should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 행하기를 배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려 한다. 너희의 선조는, **‘하나님--곧 전능하신 왕--을 두려워하라’**고 배웠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곧 완전히_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나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러 왔는데, 거기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 이 나라는 신(神)의 가족이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로 경배 받는 중심이시며, 지성 존재들의 광범한 형제관계의 머리이신 분이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 또한 그분의 아들이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신분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 생활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 섬기기를 그만 두라; 그분을 **창조주**로 공경하기를 배우며; 너희 미숙한 영(靈)의 **아버지**로서 그를 존경하며; 자비로운 옹호자로서 사랑하며; 궁극에는 너희의 좀 더 성숙된 영적 깨달음과 감사함의 대상인, 사랑 많으시고 온전히_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그릇된 관념들로부터, 겸손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개념들이 자라나고, 너희의 대부분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질과 기원으로는 흙에서 나온 벌레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영이 내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증여하시는 영은, 신성한 근원으로, 즉 기원된 우주 수준으로 확실히 돌아가며, 필사적 사람의 인간 혼은, 내주하는 이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자녀가 됐을 것이요, 신성한 영과 함께 그 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현존 바로 그 앞까지 틀림없이 상승할 것이다.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상승할 그런 모든 신앙 후보자에게 신성한 위엄이 덧붙여져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선물을 받은 필사적 사람에게는 정말로 겸손이 어울린다. 무의미하고 천박하게, 거짓 겸양으로 허세부리는 버릇은, 구원의 근원을 이해하고 영으로 태어난 너희 혼의 운명을 인식하는 것과 모순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너희의 마음 속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며; 사람 앞에서 온순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자신을 의식하는 위선과 주의를 끌기 위한 겸양은 유치하며, 천국의 계몽된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의 온유함이 영적 기원에서 나오게 하고, 독선적 우월감을 의식하여 나타내는 자기_기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선지자가 충고하기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한자**이고 **영원자**이기 때문이며, 그는 또한 ‘통회하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at is the whole duty of man.’ But I have come to give you a new and higher commandment. I would teach you to ‘love God and learn to do his will, for that is the highest privilege of the liberated sons of God.’ Your fathers were taught to ‘fear God — the Almighty King.’ I teach you, ‘Love God — the all-merciful Father.’

149:6.8 (1676.2) “In the kingdom of heaven,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there is no high and mighty king; this kingdom is a divine family. The universally recognized and unreservedly worshiped center and head of this far-flung brotherhood of intelligent beings is my Father and your Father. I am his Son, and you are also his sons. Therefore it is eternally true that you and I are brethren in the heavenly estate, and all the more so since we have become brethren in the flesh of the earthly life. Cease, then, to fear God as a king or serve him as a master; learn to reverence him as the Creator; honor him as the Father of your spirit youth; love him as a merciful defender; and ultimately worship him as the loving and all-wise Father of your more mature spiritual realization and appreciation.

149:6.9 (1676.3) “Out of your wrong concepts of the Father in heaven grow your false ideas of humility and springs much of your hypocrisy. Man may be a worm of the dust by nature and origin, but when he becomes indwelt by my Father’s spirit, that man becomes divine in his destiny. The bestowal spirit of my Father will surely return to the divine source and universe level of origin, and the human soul of mortal man which shall have become the reborn child of this indwelling spirit shall certainly ascend with the divine spirit to the very presence of the eternal Father.

149:6.10 (1676.4) “Humility, indeed, becomes mortal man who receives all these gifts from the Father in heaven, albeit there is a divine dignity attached to all such faith candidates for the eternal ascent of the heavenly kingdom. The meaningless and menial practices of an ostentatious and false humility are incompatible with the appreciation of the source of your salva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destiny of your spirit-born souls. Humility before God is altogether appropriate in the depths of your hearts; meekness before men is commendable; but the hypocrisy of self-conscious and attention-craving humility is childish and unworthy of the enlightened sons of the kingdom.

149:6.11 (1676.5) “You do well to be meek before God and self-controlled before men, but let your meekness be of spiritual origin and not the self-deceptive display of a self-conscious sense of self-righteous superiority. The prophet spoke advisedly when he said, ‘Walk humbly with God,’ for, while the Father in heaven is the Infinite and

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영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자존심을 경멸하고, 위선을 싫어하며, 죄악을 혐오하신다. 성실의 가치를 강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원하고 충실히 인도하심을 완전히 의지할 것을 강조하려고, 정신 태도와 영 반응을 보여주는 예로서 내가 아주 종종 어린아이를 언급했는데, 그런 태도와 반응은, 필사적 사람이 하늘 나라의 영 실체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 아주 필요하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에 대해 서술하면서 잘 말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 속에서는 멀리 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은 샅을 위해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치면서, 동시에 신앙심을 말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선포한다.’ 너희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아첨하나, 마음 속에서는 이중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 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지독한 것은 없다.”

7. 벳새다로 돌아감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 상의하고 **예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12월 30일, 목요일 중에 모든 사람이 여행을 끝내고 **벳새다**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내기 위하여, 전도하는 여러 집단에 심부름꾼을 파견하라고, **벳새다**의 **다윗**에게 지시했다. 비가 오는 그날 저녁식사 시간까지, 모든 사도 일행과 전도자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다.

그 집단은 **벳새다** 및 가까이 있는 **가버나움**의 여러 집에서 지내면서 **안식일** 이후까지 함께 지냈으며, 그런 후에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한 두 주일의 휴가가 전체 집단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벳새다**에서 함께 있었던 2내지 3일 동안은, 진정 흥미롭고 영감 어린 날들이었으며; 선배 선생들조차 새 설교자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2차 **갈릴리** 전도여행에 참가했던 117명의 전도자 중에서 약 75명만이 실제로 체험하는 시험을 통과했으며, 두 주의 휴가가 끝났을 때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집에 남았고, 천국의 복지와 확장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the Eternal, he also dwells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mind and a humble spirit.’ My Father disdains pride, loathes hypocrisy, and abhors iniquity. And it was to emphasize the value of sincerity and perfect trust in the loving support and faithful guidance of the heavenly Father that I have so often referred to the little child as illustrative of the attitude of mind and the response of spirit which are so essential to the entrance of mortal man into the spirit realities of the kingdom of heaven.

149:6.12 (1677.1) “Well did the Prophet Jeremiah describe many mortals when he said: ‘You are near God in the mouth but far from him in the heart.’ And have you not also read that direful warning of the prophet who said: ‘The priests thereof teach for hire, and the prophets thereof divine for money. At the same time they profess piety and proclaim that the Lord is with them.’ Have you not been well warned against those who ‘speak peace to their neighbors when mischief is in their hearts,’ those who ‘flatter with the lips while the heart is given to double-dealing’? Of all the sorrows of a trusting man, none are so terrible as to be ‘wounded in the house of a trusted friend.’”

7. RETURNING TO BETHSAIDA

149:7.1 (1677.2) Andrew, in consultation with Simon Peter and with the approval of Jesus, had instructed David at Bethsaida to dispatch messengers to the various preaching groups with instructions to terminate the tour and return to Bethsaida sometime on Thursday, December 30. By supper time on that rainy day all of the apostolic party and the teaching evangelists had arrived at the Zebedee home.

149:7.2 (1677.3) The group remained together over the Sabbath day, being accommodated in the homes of Bethsaida and near-by Capernaum, after which the entire party was granted a two weeks' recess to go home to their families, visit their friends, or go fishing. The two or three days they were together in Bethsaida were, indeed, exhilarating and inspiring; even the older teachers were edified by the young preachers as they narrated their experiences.

149:7.3 (1677.4) Of the 117 evangel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only about seventy-five survived the test of actual experience and were on hand to be assigned to service at the end of the two weeks' recess. Jesus, with Andrew, Peter, James, and John, remained at the Zebedee home and spent much time in conference regarding the welfare and extension of the kingdom.

제150편. 3차 전도여행

⇨ 149

유랜시아 책

151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50편
3차 전도여행

섹션

소개

1. 여전도자 단체
2. 막달라에 머무름
3. 디베랴에서 지낸 안식일
4. 사도들을 둘씩 내보냄
5.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6. 저녁 수업
7. 나사렛에 체류함
8. 안식일 예배
9. 나사렛의 배척

소개

서기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아브넬**이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벳새다**에 도착했고, 이튿날 **안드레** 및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합동회의에 들어갔다.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본부를 **헤브론**에 뒀고,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벳새다**로 올라오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합동회의에서 다뤘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치유를 위해 기도드릴 때, 특별한 형태의 기름을 병자에게 바르는 관례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토론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를, 다시 거절했다. **요한**의 사도들은,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때, 성별(聖別)시키는 기름을 늘 사용해 왔으며, 이것을 양쪽 집단이 똑같이 실행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사도들은 그런 규칙에 얽매이기를 거절했다.

1월 18일 화요일에, 그 스물네 명은, 3차 **갈릴리** 전도여행에 파견되기에 앞서,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서, 시험을 통과한 약 75명의 전도

PAPER 150

THE THIRD PREACHING TOU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Women's Evangelistic Corps
2. The Stop at Magdala
3. Sabbath at Tiberias
4. Sending the Apostles out Two and Two
5. What Must I Do to Be Saved?
6. The Evening Lessons
7. The Sojourn at Nazareth
8. The Sabbath Service
9. The Nazareth Rejection

INTRODUCTION

150:0.1 (1678.1) ON SUNDAY evening, January 16, A.D. 29, Abner, with the apostles of John, reached Bethsaida and went into joint conference with Andrew and the apostles of Jesus the next day. Abner and his associates made their headquarters at Hebron and were in the habit of coming up to Bethsaida periodically for these conferences.

150:0.2 (1678.2) Among the many matters considered by this joint conference was the practice of anointing the sick with certain forms of oil in connection with prayers for healing. Again did Jesus decline to participate in their discussions or to express himself regarding their conclusions. The apostles of John had always used the anointing oil in their ministry to the sick and afflicted, and they sought to establish this as a uniform practice for both groups, but the apostles of Jesus refused to bind themselves by such a regulation.

150:0.3 (1678.3) On Tuesday, January 18, the twenty-four were joined by the tested evangelists, about seventy-five in number, at the Zebedee house in

자와 합류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7주 동안 계속 됐다.

전도자를 다섯 명씩 무리지어 내보내는 한편, **예수**와 열두 사도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여행했는데, 사도들이 둘씩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신자에게 세례를 줬다. 또한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거의 3주 동안 전도자 집단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충고했고, 신자에게 세례를 줬다. 그들은 **막달라, 디베라, 나사렛** 그리고 전에 방문했던 곳과 기타 여러 지역, 즉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주요 도시와 마을들을 방문했다.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 **갈릴리**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전도가 됐다.

1. 여전도자 단체

이 세상의 생애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했던 대담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1월 16일 밤에 있었던 갑작스런 발표였다: “우리는 내일, 천국 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열 명의 여자를 따로 세우겠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휴가를 받아 **벧새다**에서 떠나 있었던 두 주(週)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 **예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부모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과, 예전의 야영지와 천막 병원 경영에 동참했던 열 명의 헌신된 여자를 **벧새다**로 불러들이도록 심부름꾼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여자들은 모두 젊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지시에 귀를 기울여 왔었지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는 일을,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맡기리라고는, 그들 자신든지 또는 그들의 선생들이든지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선택하고 임명한 이 열 명의 여자는: 전에 **나사렛** 회당의 카잔이었던 사람의 딸 **수산나**;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추자**의 아내 **요안나**; **디베라**와 **세포리** 부자 {富者} **유대인**의 딸 **엘리사벳**; **안드레**와 **베드로**의 누나 **마르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아내의 _자매인 **라헬**; **시리아** 의사 {醫師} **엘만**의 딸 **나산타**; 사도 **도마**의 사촌 **밀가**; **레위** **마태**의 맏딸 **룻**; **로마** 백부장의 딸 **셀타**;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과부 **아가만** 등이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다른 두 여자--곧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 **리브가**--를 이 집단에 추가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들에게 자체 조직을 만들도록 위임했고, 그들의 장비와 운반용 동물을 준비할 기금 {基金}을 제공하라고 **유다**에게 지시했다. 그 열 명은 **수산나**를 자기네 우두머리로, **요안나**를 회계로 선출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기금을 스스로 충당했으며; 다시는 **유다**에게서 기금을 조

Bethsaida preparatory to being sent forth on the third preaching tour of Galilee. This third mission continued for a period of seven weeks.

150:0.4 (1678.4) The evangelists were sent out in groups of five, while Jesus and the twelve traveled together most of the time, the apostles going out two and two to baptize believers as occasion required. For a period of almost three weeks Abner and his associates also worked with the evangelistic groups, advising them and baptizing believers. They visited Magdala, Tiberias, Nazareth, and all the principal cities and villages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all the places previously visited and many others. This was their last message to Galilee, except to the northern portions.

1. THE WOMEN'S EVANGELISTIC CORPS

150:1.1 (1678.5) Of all the daring things which Jesus did in connection with his earth career, the most amazing was his sudden announcement on the evening of January 16: “On the morrow we will set apart ten women for the ministering work of the kingdom.” At the beginning of the two weeks’ period during which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to be absent from Bethsaida on their furlough, Jesus requested David to summon his parents back to their home and to dispatch messengers calling to Bethsaida ten devout women who had serv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former encampment and the tented infirmary. These women had all listened to the instruction given the young evangelists, but it had never occurred to either themselves or their teachers that Jesus would dare to commission women to t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minister to the sick. These ten women selected and commissioned by Jesus were: Susanna, the daughter of the former chazan of the Nazareth synagogue; Joanna, the wife of Chuza, the steward of Herod Antipas; Elizabeth, the daughter of a wealthy Jew of Tiberias and Sepphoris; Martha, the elder sister of Andrew and Peter; Rachel, the sister-in-law of Jude, the Master’s brother in the flesh; Nasanta, the daughter of Elman, the Syrian physician; Milcha, a cousin of the Apostle Thomas; Ruth, the eldest daughter of Matthew Levi; Celta, the daughter of a Roman centurion; and Agaman, a widow of Damascus. Subsequently, Jesus added two other women to this group — Mary Magdalene and Rebecca, the daughter of Joseph of Arimathea.

150:1.2 (1679.1) Jesus authorized these women to effect their own organization and directed Judas to provide funds for their equipment and for pack animals. The ten elected Susanna as their chief and Joanna as their treasurer. From this time on they furnished their own funds; never again did

달 받지 않았다.

여자가 회당의 본당(本堂)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곧 여자의 방청석으로 제한되던) 그 시절에, 새로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선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하도록, **예수**께서 이 열 명의 여자를 지정해서 책무를 부여했던 사건은, 모든 여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준 해방령이 됐으며; 더 이상 남자가 여자를 자신보다 영적으로 뒤진 열등자로 여길 수 없게 됐다. 이것은 열두 사도에게도 분명한 충격이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매인 자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열 명의 여자를 종교 선생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할 것을,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했을 때, 그들은 글자 그대로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 일로 인해 온 지방이 떠들썩했고, **예수**의 적들은 이 기회를 **예수**를 비난할 큰 구실로 삼았지만, 사방에서 기쁜 소식을 믿는 여신도들은 선택된 자매들을 견고히 뒷받침했으며, 종교적인 일에서 여자의 위치를 이렇게 때늦게나마 인정한 것에 확실하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님**이 떠난 직후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여자를 당연히 인정하면서 여성 해방을 실천했지만, 그 후의 세대에 그들은 다시 옛 관습으로 돌아갔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를 통해서 내내, 여자 교사 및 사역자들을 **여집사**로 불렀고, 이들은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진정으로 자신의 태도가 되도록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이를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발견했다.

2. 막달라에 머무름

사도 일행이 **벳새다**로부터 길을 떠나자 그 여자들이 뒤에 따라왔다. 회담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항상 연결자 오른 쪽 앞자리에 앉았다. 점점 더 많은 여자가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됐으며, 그들이 **예수**나 혹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과 개인상담하기를 원할 때, 이것은 많은 어려움과 끝없는 당혹감의 근원이 돼왔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여자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거나 사도들과 상의하고 싶을 때, **수산나**에게 갔고, 열두 명의 여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해서, 바로 **주님** 앞으로 또는 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앞으로 가게 됐다.

막달라에서 여자들이 처음으로 쓸모 있음을 보여줬고, 그들을 택한 것이 지혜로웠음을 입증했다. **안드레**는, 여자, 특히 평판이 좋지 않은 성품의

they draw upon Judas for support.

150:1.3 (1679.2) It was most astounding in that day, when women were not even allowed on the main floor of the synagogue (being confined to the women's gallery), to behold them being recognized as authorized teacher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The charge which Jesus gave these ten women as he set them apart for gospel teaching and ministry wa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which set free all women and for all time; no more was man to look upon woman as his spiritual inferior. This was a decided shock to even the twelve apostles. Notwithstanding they had many times heard the Master say that “in the kingdom of heaven there is neither rich nor poor, free nor bond, male nor female, all are equally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they were literally stunned when he proposed formally to commission these ten women as religious teachers and even to permit their traveling about with them. The whole country was stirred up by this proceeding, the enemies of Jesus making great capital out of this move, but everywhere the women believers in the good news stood staunchly behind their chosen sisters and voiced no uncertain approval of this tardy acknowledgment of woman's place in religious work. And this liberation of women, giving them due recognition, was practiced by the apostles immediately after the Master's departure, albeit they fell back to the olden customs in subsequent generations. Throughout the early days of the Christian church women teachers and ministers were called *deaconesses* and were accorded general recognition. But Paul, despite the fact that he conceded all this in theory, never really incorporated it into his own attitude and personally found it difficult to carry out in practice.

2. THE STOP AT MAGDALA

150:2.1 (1679.3) As the apostolic party journeyed from Bethsaida, the women traveled in the rear. During the conference time they always sat in a group in front and to the right of the speaker. Increasingly, women had becom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it had been a source of much difficulty and no end of embarrassment when they had desired to hold personal converse with Jesus or one of the apostles. Now all this was changed. When any of the women believers desired to see the Master or confer with the apostles, they went to Susanna, and in company with one of the twelve women evangelists, they would go at once into the presence of the Master or one of his apostles.

150:2.2 (1680.1) It was at Magdala that the women first demonstrated their usefulness and vindicated the wisdom of their choosing. Andrew had imposed

여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상당히 엄한 규율을 제정했었다. 그 집단이 **막달라**에 갔을 때, 이 열 명의 여자는 자유롭게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자를 방문했을 때, 이 여전도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매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열두 여자로 알려진) 이 열 명의 여전도자가 봉사한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왔다. 연달아 불행이 겹치고, 그렇게 판단을 잘못 내린 여자들에 대해, 명망 있는 계층이 취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막달라**에서 악질적 사창가 가운데 하나에 굴러들었다. **마리아**에게,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도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분명히 말해준 것은 **마르다**와 **라헬**이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다음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열두 명의 이 여전도자 집단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가장 능력 있는 교사가 됐다. 그 여자는 개심한 지 약 4주 후에, **요타파타**에서 **리브가**와 함께 그런 봉사에 참여하도록 구별됐다. **마리아**와 **리브가**는, 이 집단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 세상 생애 나머지 기간에, 천대받는 자매들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고 계몽시키는 일을 계속했으며; **예수** 생애의 드라마에서 마지막 비극적 장면이 일어났을 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도망갔음에도, 이 여자들은 모두 거기 남아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rather strict rules upon his associates about doing personal work with women, especially with those of questionable character. When the party entered Magdala, these ten women evangelists were free to enter the evil resorts and preach the glad tidings directly to all their inmates. And when visiting the sick, these women were able to draw very close in their ministry to their afflicted sisters. As the result of the ministry of these ten women (afterward known as the twelve women) at this place, Mary Magdalene was won for the kingdom. Through a succession of misfortunes and in consequence of the attitude of reputable society toward women who commit such errors of judgment, this woman had found herself in one of the nefarious resorts of Magdala. It was Martha and Rachel who made plain to Mary that the doors of the kingdom were open to even such as she. Mary believed the good news and was baptized by Peter the next day.

150:2.3 (1680.2) Mary Magdalene became the most effective teacher of the gospel among this group of twelve women evangelists. She was set apart for such service, together with Rebecca, at Jotapata about four weeks subsequent to her conversion. Mary and Rebecca, with the others of this group, went on through the remainder of Jesus' life on earth, laboring faithfully and effectively for the enlightenment and uplifting of their downtrodden sisters; and when the last and tragic episode in the drama of Jesus' life was being enacted, notwithstanding the apostles all fled but one, these women were all present, and not one either denied or betrayed him.

3. 디베랴에서 지낸 안식일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안드레**는 사도 일행의 **안식일** 예배를 여자들에게 맡겼다. 물론 이것은, 예배가 새 회당에서 진행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여자들은 이 일을 책임지도록 **요안나**를 선출했으며, **헤롯**이 **펠라**에 있는 **유리아**의 거주지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새 궁전에 있는 연회장에서 회합을 가졌다. **요안나**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여자의 업무에 관계된 부분을 **성서**로부터 낭송하면서,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예로 들었다.

그날 밤 늦게, **예수**께서는 연합된 집단에게, “마술과 미신”에 대한 기억에 남을만한 말씀을 했다. 당시에는 밝고 새로운 별이라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는 표시라고 여겼다. 그런 별을 최근에 보게 된 **안드레**가, 이런 믿음이 근거가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께 물었다. **안드레**의 질문에 길게 대답하면서, **주님**은 인간의 미신에 대한 전체 주제를 놓고 철저한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이때 말씀한 것들은 현대 용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 SABBATH AT TIBERIAS

150:3.1 (1680.3) The Sabbath services of the apostolic party had been put in the hands of the women by Andrew, upon instructions from Jesus. This meant, of course, that they could not be held in the new synagogue. The women selected Joanna to have charge of this occasion, and the meeting was held in the banquet room of Herod's new palace, Herod being away in residence at Julias in Perea. Joanna read from the Scriptures concerning woman's work in the religious life of Israel, making reference to Miriam, Deborah, Esther, and others.

150:3.2 (1680.4) Late that evening Jesus gave the united group a memorable talk on “Magic and Superstition.” In those days the appearance of a bright and supposedly new star was regarded as a token indicating that a great man had been born on earth. Such a star having then recently been observed, Andrew asked Jesus if these beliefs were well founded. In the long answer to Andrew's question the Master entered upon a thoroughgoing discussion of the whole subject of human superstition. The statement which Jesus made at

1. 하늘에 있는 별들의 행로는 이 세상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아무 상관없다. 천문학은 타당한 과학적 연구인 반면, 점성술은 천국 복음에 함께할 수 없는 미신적 오류 덩어리다.

2. 최근에 죽인 동물의 내장{內臟}을 조사하는 일은, 기후, 미래의 사건, 또는 인간적인 일의 결과에 대해 아무 것도 드러낼 수 없다.

3. 죽은 자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 또는 한때 친구였던 사람과 연락하려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4. 부적이나 유품{遺品}은, 병을 치유하거나 재앙을 막거나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영적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모든 물질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단지 조잡스런 미신일 뿐이다.

5. 제비뽑기에 맡겨 버리는 것은, 많은 사소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고안된 방법은 아니다. 그런 결과는 순수하게 물질적 우연의 문제다. 영적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수단은, **아들이** 쏟아 부은 영과 **무한한 영**의 어디에나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인류의 영 재능, 즉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에 포함돼 있다.

6. 점, 요술, 및 마녀술책은, 무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미신이며, 또한 마술의 현혹도 마찬가지다. 마술의 숫자, 좋은 행운의 전조, 그리고 불운의 징조를 믿는 것은, 단순하고 근거 없는 미신이다.

7. 꿈 해몽은 대체로, 무식하고 과장하게 추측하는 미신적이고 근거 없는 체계다. 천국 복음은 원시 종교의 점치는 사제들과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음에 틀림없다.

8.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은, 진흙, 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든 물질 상징 속에 거할 수 없으며; 우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9. 요술사, 마법사, 마술사, 및 요술쟁이의 풍습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벨론** 사람, 그리고 고대{古代} **가나안인**의 미신에서 연유됐다. 부적이나 온갖 종류의 주문{呪文}은, 선한 영의 보호를 받게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아주지도 않는다.

10. 그는, 주문, 죄인판별법, 마법, 저주, 표적, 맨드레이크, 매듭진 끈, 그리고 온갖 다른 형태의 무지하고 노예적인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비난했다.

this time may be summariz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50:3.3 (1680.5) 1. The courses of the stars in the heaven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e events of human life on earth. Astronomy is a proper pursuit of science, but astrology is a mass of superstitious error which has no plac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50:3.4 (1680.6) 2. The examination of the internal organs of an animal recently killed can reveal nothing about weather, future events, or the outcome of human affairs.

150:3.5 (1680.7) 3. The spirits of the dead do not come back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or their onetime friends among the living.

150:3.6 (1681.1) 4. Charms and relics are impotent to heal disease, ward off disaster, or influence evil spirits; the belief in all such material means of influencing the spiritual world is nothing but gross superstition.

150:3.7 (1681.2) 5. Casting lots, while it may be a convenient way of settling many minor difficulties, is not a method designed to disclose the divine will. Such outcomes are purely matters of material chance. The only means of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world is embraced in the spirit endowment of mankind,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Father, together with the outpoured spirit of the Son and the omnipresent influence of the Infinite Spirit.

150:3.8 (1681.3) 6. Divination, sorcery, and witchcraft are superstitions of ignorant minds, as also are the delusions of magic. The belief in magic numbers, omens of good luck, and harbingers of bad luck, is pure and unfounded superstition.

150:3.9 (1681.4) 7.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s largely a superstitious and groundless system of ignorant and fantastic speculation. The gospel of the kingdom must have nothing in common with the soothsayer priests of primitive religion.

150:3.10 (1681.5) 8. The spirits of good or evil cannot dwell within material symbols of clay, wood, or metal; idols are nothing more than the material of which they are made.

150:3.11 (1681.6) 9. The practices of the enchanters, the wizards, the magicians, and the sorcerers, were derived from the superstitions of the Egyptians, the Assyrians, the Babylonians, and the ancient Canaanites. Amulets and all sorts of incantations are futile either to win the protection of good spirits or to ward off supposed evil spirits.

150:3.12 (1681.7) 10. He exposed and denounced their belief in spells, ordeals, bewitching, cursing, signs, mandrakes, knotted cords, and all other forms of ignorant and enslaving superstition.

4. 사도들을 둘씩 내보냄

다음날 저녁에, 열두 명의 사도, **요한**의 사도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여자 집단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것을 너희도 직접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추수를 주관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가 추수할 일꾼을 발으로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자. 내가 남아서 새로 된 교사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동안, 먼저 된 교사들을 둘씩 내보내서, 아직은 편리하고 조용한 시절 동안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빨리 퍼지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으로 내보낼 사도들을 쌍으로 정해줬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짝지어 나갔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빌립과 나다니엘, 도마와 마태, 야고보 및 유다 알패오,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열두 사도가 다시 만날 기일을 정해주고, 헤어지면서 말씀했다: “이번 사명에서는 이방인의 어떤 도시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며,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며,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해라.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어떤 사람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과 관련된 자라고 감히 말했다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 말아라.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사적{私的}으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혜롭게 공공연히 전파해라. 내가 골방에서 너희에게 드러내 온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이 약속의 계절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이자 제자인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파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오히려 몸을 유지시킬 수 있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해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단언한다. 그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매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 가르침을 부끄러워 말며; 가서 평화와 선한 뜻을 선포해라; 그러나 속지 마라—너희 전도에 화평이 항상 뒤따르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사람들이 내 선물을 거부할 때에는 분리와 혼란을 가져온다. 가족 전부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평화가 그 집에 깃들지만; 가족 중에서 일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족이 복음을 배척할 때, 그런 분리는 단지 슬픔과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사람이 서로 원수 되는

4. SENDING THE APOSTLES OUT TWO AND TWO

150:4.1 (1681.8) The next evening, having gathered together the twelve apostles, the apostles of John, and the newly commissioned women's group, Jesus said: “You see for yourselves that the harvest is plenteous, but the laborers are few. Let us all, therefore, pray the Lord of the harvest that he send forth still more laborers into his fields. While I remain to comfort and instruct the younger teachers, I would send out the older ones two and two that they may pass quickly over all Galilee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le it is yet convenient and peaceful.” Then he designated the pairs of apostles as he desired them to go forth, and they were: Andrew and Peter, James and John Zebedee, Philip and Nathaniel, Thomas and Matthew, James and Judas Alpheus,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150:4.2 (1681.9) Jesus arranged the date for meeting the twelve at Nazareth, and in parting, he said: “On this mission go not to any city of the gentiles, neither go into Samaria, but go instead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proclaim the saving truth that man is a son of God. Remember that the disciple is hardly above his master nor a servant greater than his lord. It is enough for the disciple to be equal with his master and the servant to become like his lord. If some people have dared to call the master of the house an associate of Beelzebub, how much more shall they so regard those of his household! But you should not fear these unbelieving enemies. I declare to you that there is nothing covered up that is not going to be revealed;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shall not be known. What I have taught you privately, that preach with wisdom in the open. What I have revealed to you in the inner chamber, that you are to proclaim in due season from the housetops. And I say to you, my friends and disciples, be not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the body, but who are not able to destroy the soul; rather put your trust in Him who is able to sustain the body and save the soul.

150:4.3 (1682.1)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And yet I declare tha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in God's sight. Know you not tha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therefore; you are of more value than a great many sparrows. Be not ashamed of my teaching; go forth proclaiming peace and good will, but be not deceived — peace will not always attend your preaching.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but when men reject my gift, division and turmoil result. When all of a family receive the gospel of the kingdom, truly peace abides in that house; but when some of the family enter the kingdom and others reject the gospel, such division can

일이 자기 집의 것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너희가 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가 선언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열두 사도는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예정한 일정{日程}대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모일 때까지는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다.

5.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의 사도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간 후, 그리고 **예수**의 사도들도 둘씩 짝 지어 나간 후, **수넬**에서 어느 저녁시간에, **주님**이 열두 명의 여자와 더불어, **아굽**의 지도 아래서 수고하던 열두 명의 젊은 전도자를 가르치고 있을 때, **라헬**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했다. “**주님**,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다른 여자들이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대답했다:

“남녀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천국의 이 복음을 믿고; 신(神)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대답해라.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을 신앙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성서**에서 ‘**주** 안에서 내가 의(義)와 힘을 갖는다’는 말을 읽지 못했느냐?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의가 가까우며;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내 백성을 감쌀 것이다.’ ‘내 혼이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독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옷으로 내 아들을 입히라.’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영원히 진실이다. **아버지** 나라의 문은 완전히 열려있지만, 그 안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진보가--곧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필수조건이다.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며, **아들**들이 구원을 드러낸다. 네 편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만들어 준다. 너희는 신앙으로 정당화되며; 신앙으로 구원받으며; 바로 이 신앙으로, 점진적이고 신성한 완전성에 이르도록 영원히 향상된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교훈으로 구원을 자각하게 됐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내내, 바로 이 신앙이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이 구원을 좀 더 실제적이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께서

produce only sorrow and sadness. Labor earnestly to save the whole family lest a man's foes become those of his own household. But, when you have done your utmost for all of every family, I declare to you that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this gospel is not worthy of the kingdom.”

150:4.4 (1682.2) When the twelve had heard these words, they made ready to depart. And they did not again come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ir assembling at Nazareth to meet with Jesus and the other disciples as the Master had arranged.

5. WHAT MUST I DO TO BE SAVED?

150:5.1 (1682.3) One evening at Shunem, after John's apostles had returned to Hebron, and after Jesus' apostles had been sent out two and two, when the Master was engaged in teaching a group of twelve of the younger evangelists who were laboring under the direction of Jacob, together with the twelve women, Rachel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what shall we answer when women ask us, What shall I do to be saved?”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answered:

150:5.2 (1682.4) “When men and women ask what shall we do to be saved, you shall answer,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ccept divine forgiveness. By faith recognize the indwelling spirit of God, whose acceptance makes you a son of God.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it says, ‘In the Lord have I righteousness and strength.’ Also where the Father says, ‘My righteousness is near; my salvation has gone forth, and my arms shall enfold my people.’ ‘My soul shall be joyful in the love of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and has covered me with the robe of his righteousness.’ Have you not also read of the Father that his name ‘sha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 ‘Take away the filthy rags of self-righteousness and clothe my son with the robe of divine righteousness and eternal salvation.’ It is forever true,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is wholly free, but progress — growth in grace — is essential to continuance therein.

150:5.3 (1682.5) “Salvation is the gift of the Father and is revealed by his Sons. Acceptance by faith on your part makes you a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a son or a daughter of God. By faith you are justified; by faith are you saved; and by this same faith are you eternally advanced in the way of progressive and divine perfection. By faith was Abraham justified and made aware of salvation by the teachings of Melchizedek. All down through the ages has this same faith saved the sons of men, but now has a Son come forth from the Father to make salvation more real and acceptable.”

부터 왔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며, 이어지는 날들에도, 그들 모두가 새로운 힘과 재생된 에너지와 열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는 계획에 자신들이 포함됐음을 알고, 한층 더 기쁨에 넘쳤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지으면서 말씀했다: “너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수고해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로움은 천국의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영으로_탄생된 생애의 자연스런 열매다. 너희가 의로운 인생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미 구원됐기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들신분을 인식하고, 천국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 인생의 최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저희는 사람이 아는 모든 죄를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들신분을 깨닫는 것은, 죄를 범하고 싶은 욕구와 공존할 수 없다. 천국을 믿는 자는 의에 굶주리고 신성한 완전성에 목말라 한다.”

6. 저녁 수업

예수께서는 저녁 토론에서 여러 주제{主題}에 대해 말씀했다. 이 여행의 나머지 기간에--곧 그들 모두가 **나사렛**에서 다시 결합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 “꿈과 환상들,” “악의,” “검손함과 온순함,” “용기와 충성심,” “음악과 경배,” “봉사와 순종,” “자존심과 주체됨,” “회개에 관련한 용서,” “평강과 완전성,” “악한 말과 시기,” “악, 죄, 및 유혹,” “의심과 불신,” “지혜와 경배”에 관해 토론했다. 먼저 된 선배 사도들이 자리에 없었으므로, 나중 된 이 남녀 집단은 **주님**과 함께 더 거리낌 없이 이런 토론을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명의 전도자로 이뤄진 한 무리와 함께 이삼일 지낸 후,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내려고 자리를 옮겼으며,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의 근황과 동향에 대한 소식을 항상 듣고 있었다. 여전도자들은 이것이 첫 여행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다. 각 집단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 여행의 진행 상황을 계속 들어서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들로부터 오는 소식은, 멀리 퍼져서 따로 떨어져 있던 전체 사역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됐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열두 사도는 전도자 및 여자 단체와 함께, 3월 4일 금요일에 **주님**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모이기로 미리 계획돼 있었

150:5.4 (1683.1) When Jesus had left off speaking, there was great rejoicing among those who had heard these gracious words, and they all went on in the days that followe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with new power and with renewed energy and enthusiasm. And the women rejoiced all the more to know they were included in thes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n earth.

150:5.5 (1683.2) In summing up his final statement, Jesus said: “You cannot buy salvation; you cannot earn righteousness.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and righteousness is the natural fruit of the spirit-born life of sonship in the kingdom. You are not to be saved because you live a righteous life; rather is it that you live a righteous life because you have already been saved, have recognized sonship as the gift of God and service in the kingdom as the supreme delight of life on earth. When men believe this gospel, which is a revelation of the goodness of God, they will be led to voluntary repentance of all known sin. Realization of son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desire to sin. Kingdom believers hunger for righteousness and thirst for divine perfection.”

6. THE EVENING LESSONS

150:6.1 (1683.3) At the evening discussions Jesus talked upon many subjects. During the remainder of this tour — before they all reunited at Nazareth — he discussed “The Love of God,” “Dreams and Visions,” “Malice,” “Humility and Meekness,” “Courage and Loyalty,” “Music and Worship,” “Service and Obedience,” “Pride and Presumption,” “Forgiveness in Relation to Repentance,” “Peace and Perfection,” “Evil Speaking and Envy,” “Evil, Sin, and Temptation,” “Doubts and Unbelief,” “Wisdom and Worship.” With the older apostles away, these younger groups of both men and women more freely entered into these discussions with the Master.

150:6.2 (1683.4) After spending two or three days with one group of twelve evangelists, Jesus would move on to join another group, being informed as to the whereabouts and movements of all these workers by David’s messengers. This being their first tour, the women remained much of the time with Jesus. Through the messenger service each of these groups was kept fully informed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tour, and the receipt of news from other groups was always a source of encouragement to these scattered and separated workers.

150:6.3 (1683.5) Before their separation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twelve apostles, together with the evangelists and the women’s corps, should

다. 따라서, 이 무렵에 중부와 남부 **갈릴리** 전 지역에서, 사도와 전도자로 구성된 이 다양한 무리들이 **나사렛**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 오후 중반 무렵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도시 북쪽 고원 지역에 자리 잡은 야영지에 가장 나중에 도착했는데,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야영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중 사역을 시작한 이래, 이번 에 처음으로 **나사렛**을 방문했다.

7. 나사렛에 체류함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나사렛**을 거닐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집과 목공소를 지나갔고, 소년 시절에 자주 왔던 언덕에서 반 시간 정도 보냈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로, **사람의 아들**이 자기 혼 속에서 이때처럼 인간 감정의 홍수로 격동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왔던, 해 질 무렵을 알리는 귀에 익은 나팔소리를 들었다. 야영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인 회당 옆으로 걸어 내려갔고,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추억을 마음에 떠올렸다. **예수**께서는, 그날 일찍 **도마**를 회당 지도자에게 보내서, **안식일** 아침 예배에 자신이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나사렛 사람들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는 평판을 얻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동네는 가까이 있는 **세포리**의 낮은 도덕 수준의 영향을 점점 많이 받았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동안, **나사렛**에서는 그에 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다. 그가 **가버나움**으로 옮겨갔을 때 많은 분노가 거기서 일어났었다. **나사렛** 주민은 예전에 목수였던 그의 많은 행적에 관해 들었을 때, 초기 전도여행에서 그가 자기 고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상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들었으나, 대다수의 시민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서는 아무런 위대한 일도 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여러 달 많이 토론했으나, 그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은, 환영받는 귀향(歸鄉)이 아니라, 확연히 냉담하고 혹평하는 분위기 속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지낼 것이며, 회당에서 설교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난폭하고 질 나쁜 여러 사람을 고용했다.

assemble at Nazareth to meet the Master on Friday, March 4. Accordingly, about this time, from all parts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these various groups of apostles and evangelists began moving toward Nazareth. By midafternoon, Andrew and Peter, the last to arrive, had reached the encampment prepared by the early arrivals and situated on the highlands to the north of the city. And this was the first time Jesus had visited Nazareth since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7. THE SOJOURN AT NAZARETH

150:7.1 (1683.6) This Friday afternoon Jesus walked about Nazareth quite unobserved and wholly unrecognized. He passed by the home of his childhood and the carpenter shop and spent a half hour on the hill which he so much enjoyed when a lad. Not since the day of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had the Son of Man had such a flood of human emotion stirred up within his soul. While coming down from the mount, he heard the familiar sounds of the trumpet blast announcing the going down of the sun, just as he had so many, many times heard it when a boy growing up in Nazareth. Before returning to the encampment, he walked down by the synagogue where he had gone to school and indulged his mind in many reminiscences of his childhood days. Earlier in the day Jesus had sent Thomas to arrange with the ruler of the synagogue for his preaching at the Sabbath morning service.

150:7.2 (1684.1) The people of Nazareth were never reputed for piety and righteous living. As the years passed, this village became increasingly contaminated by the low moral standards of nearby Sepphoris. Throughout Jesus' youth and young manhood there had been a division of opinion in Nazareth regarding him; there was much resentment when he moved to Capernaum. While the inhabitants of Nazareth had heard much about the doings of their former carpenter, they were offended that he had never included his native village in any of his earlier preaching tours. They had indeed heard of Jesus' fame, but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were angry because he had done none of his great works in the city of his youth. For months the people of Nazareth had discussed Jesus much, but their opinions were, on the whole, unfavorable to him.

150:7.3 (1684.2) Thus did the Master find himself in the midst of, not a welcome homecoming, but a decidedly hostile and hypercritical atmosphere. But this was not all. His enemies, knowing that he was to spend this Sabbath day in Nazareth and supposing that he would speak in the synagogue, had hired numerous rough and uncouth men to harass him and in every way possible make trouble.

그를 지극히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스승인 카잔을 포함하여, **예수**의 옛 친구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거나 **나사렛**을 떠났고, 젊은 세대들은 강한 질투심을 갖고 그의 명성에 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 가족에게 바쳤던 초기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형제들 및 결혼한 여동생들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예수**에 대한 가족의 태도 역시, 시민의 불친절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통파 **유대인**은, **예수**께서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 빨리 걷는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150:7.4 (1684.3) Most of the older of Jesus' friends, including the doting chazan teacher of his youth, were dead or had left Nazareth, and the younger generation was prone to resent his fame with strong jealousy. They failed to remember his early devotion to his father's family, and they were bitter in their criticism of his neglect to visit his brother and his married sisters living in Nazareth. The attitude of Jesus' family toward him had also tended to increase this unkind feeling of the citizenry. The orthodox among the Jews even presumed to criticize Jesus because he walked too fast on the way to the synagogue this Sabbath morning.

8. 안식일 예배

이 **안식일**은 날씨가 좋았으며, 친구든지 적이든지 모든 **나사렛** 사람은, 자기네 마을의 예전 시민이었던 그의 말을 들으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사도의 수행원들 중에서 여럿이 회당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러 가기에는 장소가 좁았다. **예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 경배 장소에서 종종 설교했었는데, 이날 아침에 회당의 지도자가 **성서** 본문을 읽을 신성시되는 두루마리 문서를 그에게 넘겨줬을 때, 거기 참석했던 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것이 그가 이 회당에 기증했던 바로 그 사본(寫本)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날 있었던 예배는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그는 회당 지도자와 함께 연단으로 올라갔고, 예배는 두 개의 기도를 낭송함으로써 시작했다: “복되시도다, 세상의 왕이신 **주**여, 당신은 빛을 지으시고, 어두움을 창조하시며, 평화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나이다; 당신은 자비로써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며, 선하심으로 매일 매일 그리고 모든 날에 창조의 업적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창작품의 영광과, 자신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빛을 _발하는 빛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주**께서 복되시도다. 셀라. 복되시도다, 빛을 지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도했다: “**주** 우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넘치는 많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시여, 그를 신뢰하는 우리 조상을 위함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법령을 가르치셨으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소서. 우리 눈을 밝히사 율법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당신의 계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결합하여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끝없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선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크신 이름에 가까이 있게 하셨사오니 --셀라-- 이는 우

8. THE SABBATH SERVICE

150:8.1 (1684.4) This Sabbath was a beautiful day, and all Nazareth, friends and foes, turned out to hear this former citizen of their town discourse in the synagogue. Many of the apostolic retinue had to remain without the synagogue; there was not room for all who had come to hear him. As a young man Jesus had often spoken in this place of worship, and this morning, when the ruler of the synagogue handed him the roll of sacred writings from which to read the Scripture lesson, none present seemed to recall that this was the very manuscript which he had presented to this synagogue.

150:8.2 (1684.5) The services on this day were conducted just as when Jesus had attended them as a boy. He ascended the speaking platform with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d the service was begun by the recital of two prayers: “Blessed is the Lord, King of the world, who forms the light and creates the darkness, who makes peace and creates everything; who, in mercy, gives light to the earth and to those who dwell upon it and in goodness, day by day and every day, renews the works of creation. Blessed is the Lord our God for the glory of his handiworks and for the light-giving lights which he has made for his praise. Selah. Blessed is the Lord our God, who has formed the lights.”

150:8.3 (1685.1) After a moment's pause they again prayed: “With great love has the Lord our God loved us, and with much overflowing pity has he pitied us, our Father and our King, for the sake of our fathers who trusted in him. You taught them the statutes of life; have mercy upon us and teach us. Enlighten our eyes in the law; cause our hearts to cleave to your commandments; unite our hearts to love and fear your name, and we shall not be put to shame, world without end. For you are a God who prepares salvation, and us have you chosen from among all nations and tongues, and in truth have you brought us near your great name — selah — that we may lovingly praise your unity.

리로 하여금 당신의 통일성을 사랑으로 찬양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복되시도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시여.”

그때 회중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암송했다. 율법의 여러 부분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이 제례식은, 하늘 나라의 명에, 또한 밤낮으로 적용되는 여러 계명의 명에, 경배자들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가리켰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었다: “진실로 당신은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왕**이시요 우리 조상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주**시요 우리 조상의 **구원주**시며; 우리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시니이다. 당신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있고, 당신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나이다. 구출된 그들이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당신의 이름에 바쳤으니, 그들이 다 함께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기를, **야훼**가 세상을 끝없이 통치하시리로다 했도다.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시여.”

그 후에 회당장은, 신성시되는 글이 들어 있는 상자, 즉 언약케 앞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아홉 개의 축복 기도문인, 축도(祝禱)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손님이 말씀할 시간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 예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래서 축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낭송했다. 처음 것은 이랬다: “**주**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 자비와 호의를 베푸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조상에게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시도다. 오, **왕**이시여, 돕는 자시여, 구원자시여, 방패시여! 복되시도다, 오, **야훼**여,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그다음은 마지막 축도가 이어졌다: “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영원토록 베푸소서, 당신은 모든 평화의 **왕**과 **주**가 되심이니이다. 당신은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나이다. 복되시도다 **야훼**여, 당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평화로 복되게 하시나이다.” 회중은 축도하는 회당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축도 후에 그는 형식을 벗어나서 그날에 적합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끝나자 온 회중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했다.

그때 카잔이 켈로 가서 두루마리를 꺼내 **예수**께 건네주고 **성서**의 본문을 읽게 했다. 관례에 따르면 일곱 사람이 적어도 율법 중에서 세 구절씩 읽도록 돼있었으나, 이날은 그 관례를 접어두고, 방문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절의 말씀을 읽게 했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일어나서 **신명기**에서 읽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

Blessed is the Lord, who in love chose his people Israel.”

150:8.4 (1685.2) The congregation then recited the Shema, the Jewish creed of faith. This ritual consisted in repeating numerous passages from the law and indicated that the worshipers took upon themselves the yoke of the kingdom of heaven, also the yoke of the commandments as applied to the day and the night.

150:8.5 (1685.3) And then followed the third prayer: “True it is that you are Yahweh, our God and the God of our fathers; our King and the King of our fathers; our Savior and the Savior of our fathers; our Creator and the rock of our salvation; our help and our deliverer. Your name is from everlasting, and there is no God beside you. A new song did they that were delivered sing to your name by the seashore; together did all praise and own you King and say, Yahweh shall reign, world without end. Blessed is the Lord who saves Israel.”

150:8.6 (1685.4) The ruler of the synagogue then took his place before the ark, or chest, containing the sacred writings and began the recitation of the nineteen prayer eulogies, or benedictions. But on this occasion it was desirable to shorten the service in order that the distinguished guest might have more time for his discourse; accordingly, only the first and last of the benedictions were recited. The first was: “Blessed is the Lord our God, and the God of 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the great, the mighty, and the terrible God, who shows mercy and kindness, who creates all things, who remembers the gracious promises to the fathers and brings a savior to their children’s children for his own name’s sake, in love. O King, helper, savior, and shield! Blessed are you, O Yahweh, the shield of Abraham.”

150:8.7 (1685.5) Then followed the last benediction: “O bestow on your people Israel great peace forever, for you are King and the Lord of all peace. And it is good in your eyes to bless Israel at all times and at every hour with peace. Blessed are you, Yahweh, who blesses his people Israel with peace.” The congregation looked not at the ruler as he recited the benedictions. Following the benedictions he offered an informal prayer suitable for the occasion, and when this was concluded, all the congregation joined in saying amen.

150:8.8 (1685.6) Then the chazan went over to the ark and brought out a roll, which he presented to Jesus that he might read the Scripture lesson. It was customary to call upon seven persons to read not less than three verses of the law, but this practice was waived on this occasion that the visitor might read the lesson of his own selection.

한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진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끄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끄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면전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율법에서 읽기를 마쳤을 때, **이사야**의 글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호의적인 해(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책을 말아서 회당장에게 돌려준 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성서**가 오늘날 이뤄졌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거의 15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으며, 그의 우아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했다.

정식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설교자가 남아 있으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당의 규례였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아침에 질문하기 위해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이 집단 중에는 정신이 약하게 물들어 있는 많은 난폭한 사람이 섞여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무리 주위에는 **예수**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고용된 천박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밖에 남아 있던 사도들과 전도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때 회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문제가 일어날 기미가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님**이 떠나도록 유도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가려 하지 않았다.

9. 나사렛의 배척

예수께서는, 큰 무리의 적들이 있고, 추종자들도 여기 저기 흩어져 회당 안에 섞여 있음을 봤다. 그들의 무리한 질문과 악의를 품은 농담에, 그가 반 익살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며; 내가 그 목수이고, 너희가 내게, ‘의사여, 네 자신부터 치유해보라’는 속담을 일깨워 주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행하라고 너희가 도전하는 일은, 내게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증거 하겠는데, **성서**에서도 선언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

Jesus, taking the roll, stood up and began to read from Deuteronomy: “For this commandment which I give you this day is not hidden from you, neither is it far off. It is not in heaven, that you should say, who shall go up for us to heaven and bring it down to us that we may hear and do it? Neither is it beyond the sea,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go over the sea for us to bring the commandment to us that we may hear and do it? No, the word of life is very near to you, even in your presence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know and obey it.”

150:8.9 (1686.1) And when he had ceased reading from the law, he turned to Isaiah and began to read: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tiding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the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bruised and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150:8.10 (1686.2) Jesus closed the book and, after handing it back to the ruler of the synagogue, sat down and began to discourse to the people. He began by saying: “Today are these Scriptures fulfilled.” And then Jesus spoke for almost fifteen minutes on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Many of the people were pleased with the discourse, and they marveled at his graciousness and wisdom.

150:8.11 (1686.3) It was customary in the synagogu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ormal service, for the speaker to remain so that those who might be interested could ask him questions. Accordingly, on this Sabbath morning Jesus stepped down into the crowd which pressed forward to ask questions. In this group were many turbulent individuals whose minds were bent on mischief, while about the fringe of this crowd there circulated those debased men who had been hired to make trouble for Jesus. Many of the disciples and evangelists who had remained without now pressed into the synagogue and were not slow to recognize that trouble was brewing. They sought to lead the Master away, but he would not go with them.

9. THE NAZARETH REJECTION

150:9.1 (1686.4) Jesus found himself surrounded in the synagogue by a great throng of his enemies and a sprinkling of his own followers, and in reply to their rude questions and sinister banterings he half humorously remarked: “Yes, I am Joseph’s son; I am the carpenter, and I am not surprised that you remind me of the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and that you challenge me to do in Nazareth what you have heard I did at Capernaum; but I call you to witness that even the Scriptures declare that ‘a prophet is not without

기 민족 이외로부터는 존경 받지 않음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밀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떠났지만, 당신의 형제는 평범한 일꾼이며, 당신의 여동생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 그들은 오늘날 어디 있는가? 당신이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당신이 이곳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이적 행함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자라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 모두가 하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는, 받는 자의 살아 있는 신앙에 반응해서 일어난다."

가장 어린 전도자인 **나홀**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가운데 하나인 **열심당 시몬**이 전략적인 큰 실책을 범하지만 앎았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의 친구들이 무리 속에서 한군데로 모여서, **주님**의 적들에게 나가라고 호전적인 태도로 명령하지 앎았다면, **예수**께서 그 무리를 기분 좋게 다루고, 심지어 난폭한 적들도 효과적으로 무장해제시켰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항상 사도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자기네가 기꺼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무례함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했기에,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화내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은 단지, 사악하고 질 낮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했을 뿐이다. 이 무뢰한들은 고용인이 지휘하는 대로 **예수**를 붙들고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까이 있는 가파른 언덕 벼랑 끝으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그를 아래로 밀어뜨리고자 작정했다. 그런데 그들이 벼랑 끝에서 그를 막 밀치려 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을 잡고 있는 자에게로 갑자기 몸을 돌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팔을 조용히 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앎았으나, 그가 앞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자, 폭도들은 길을 비키면서 아무 방해도 하지 앎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뒀는데, 그것을 본 **예수**의 친구들은 경탄해 마지앎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야영지로 갔고, 거기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 밤에 준비를 마쳤다.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끝난 것이, **예수**의 모든 추종자를 착잡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의 의미를 얼마간 깨닫기 시작했으며; 천국이 많은 슬픔과 쓰라린 실망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앎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나사렛**을 떠났으며, 여러 다른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3월 10일 목요일

honor save in his own country and among his own people."

150:9.2 (1686.5) But they jostled him and, pointing accusing fingers at him, said: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the people of Nazareth; you moved away from us, but your brother is a common workman, and your sisters still live among us. We know your mother, Mary. Where are they today? We hear big things about you, but we notice that you do no wonders when you come back." Jesus answered them: "I love the people who dwell in the city where I grew up, and I would rejoice to see you 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doing of the works of God is not for me to determine. The transformations of grace are wrought in response to the living faith of those who are the beneficiaries."

150:9.3 (1686.6) Jesus would have good-naturedly managed the crowd and effectively disarmed even his violent enemies had it not been for the tactical blunder of one of his own apostles, Simon Zelotes, who, with the help of Nahor, one of the younger evangelists, had meanwhile gathered together a group of Jesus' friends from among the crowd and, assuming a belligerent attitude, had served notice on the enemies of the Master to go hence. Jesus had long taught the apostles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but his followers were not accustomed to seeing their beloved teacher, whom they so willingly called Master, treated with such discourtesy and disdain. It was too much for them, and they found themselves giving expression to passionate and vehement resentment, all of which only tended to arouse the mob spirit in this ungodly and uncouth assembly. And so, under the leadership of hirelings, these ruffians laid hold upon Jesus and rushed him out of the synagogue to the brow of a near-by precipitous hill, where they were minded to shove him over the edge to his death below. But just as they were about to push him over the edge of the cliff, Jesus turned suddenly upon his captors and, facing them, quietly folded his arms. He said nothing, but his friends were more than astonished when, as he started to walk forward, the mob parted and permitted him to pass on unmolested.

150:9.4 (1687.1) Jesus, followed by his disciples, proceeded to their encampment, where all this was recounted. And they made ready that evening to go back to Capernaum early the next day, as Jesus had directed. This turbulent ending of the third public preaching tour had a sobering effect upon all of Jesus' followers. They were beginning to realize the meaning of some of the Master's teachings; they were awaking to the fact that the kingdom would come only through much sorrow and bitter disappointment.

150:9.5 (1687.2) They left Nazareth this Sunday morning, and traveling by different routes, they all

정오에 마침내 그들 모두가 **벳새다**에 집합했다. 그들은 열광적이고 모든 것을 정복한 승리의 십자군{十字軍}으로서가 아니라, 침착하고 진지한 집단, 환상에서 깨어난 진리의 복음 전파자로서 함께 모였다.

finally assembled at Bethsaida by noon on Thursday, March 10. They came together as a sober and serious group of disillusioned preachers of the gospel of truth and not as an enthusiastic and all-conquering band of triumphant crusaders.

제151편. 해변에 머물면서 가르침

⇨ 150

유랜시아 책

15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51편

해변에 머물면서 가르침

섹션

소개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 비유의 해석
3. 비유에 대해 더 하신 말씀
4. 해변에서 말씀하신 다른 여러 비유
5. 케레스를 방문함
6. 케레스의 미치광이

PAPER 151

TARRYING AND TEACHING BY THE SEASID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ble of the Sower
2.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3. More about Parables
4. More Parables by the Sea
5. The Visit to Kheresa
6. The Kheresa Lunatic

소개

3월 10일이 되자, 전도하고 가르치던 전체 집단이 **벳새다**에 모였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그들 가운데 다수가 고기 잡으러 나갔고, 한편 **안식일**에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선조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회당에 참석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대부분을 언덕에서 혼자 지냈다. 토요일 밤에 “역경의 목적과 실망의 영적 가치”라는 주제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시간 이상 가르쳤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제시했던 이 수업을 결코 잊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최근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함으로 인한 슬픔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사도들은 그의 평상시 유쾌한 모습에 야릇한 슬픔이 깃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고, **베드로**는 새 전도자 단체의 안녕과 방침에 관련된 많은 책임에 더 전념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떠나기 전에, **가버나움**과 그 주변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

INTRODUCTION

151:0.1 (1688.1) BY MARCH 10 all of the preaching and teaching groups had forgathered at Bethsaida. Thursday night and Friday many of them went out to fish, while on the Sabbath day they attended the synagogue to hear an aged Jew of Damascus discourse on the glory of father Abraham. Jesus spent most of this Sabbath day alone in the hills. That Saturday night the Master talked for more than an hour to the assembled groups on “The mission of adversity and the spiritual value of disappointment.” This was a memorable occasion, and his hearers never forgot the lesson he imparted.

151:0.2 (1688.2) Jesus had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sorrow of his recent rejection at Nazareth; the apostles were aware of a peculiar sadness mingled with his usual cheerful demeanor. James and John were with him much of the time, Peter being more than occupied with the many responsibilities having to do with the welfare and direction of the new corps of evangelists. This time of waiting before starting for the Passover at Jerusalem, the women spent in visiting from house to house, teaching the gospel, and ministering to the sick in Capernaum and the

surrounding cities and villages.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무렵에, **예수**께서는 자기 주변에 그토록 자주 모여드는 대중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비유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전날에 사도들 및 다른 사람들과 밤 깊도록 이야기했으므로, 이 일요일 아침에는 그 집단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침을 먹으러 나왔으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가서 자신이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전에 고기잡이하던 배에 홀로 앉아서, 천국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하여 묵상했다. 그러나 **주님**이 홀로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가버나움**과 근처 동네에서 사람들이 곧 도착하기 시작했고, 아침 열 시가 되자, 거의 1,000명이 **예수**의 배 가까이 있는 해변에 모여서 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배로 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따라다니는 군중에게 연속해서 가르친 여러 비유 가운데 첫 비유였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 배에는 그가 앉았던 높은 의자가 있었고, 물가에 모여 있는 인파에게 말씀했다. **베드로**가 몇 마디 말한 뒤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고, 씨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밭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땅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았으므로 곧 썩어 나갔지만,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나오자마자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자 그것이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자라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또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비유 말씀을 마치면서, 그는 대중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다.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자 매우 당황했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날 밤 **세베대의** 정원에서 **마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대중에게 가르치셨던 모호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쳐 왔다. 하늘 나라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지금부터는, 분별력 없는 대중에게, 그리고 우리

1. THE PARABLE OF THE SOWER

151:1.1 (1688.3) About this time Jesus first began to employ the parable method of teaching the multitudes that so frequently gathered about him. Since Jesus had talked with the apostles and others long into the night, on this Sunday morning very few of the group were up for breakfast; so he went out by the seaside and sat alone in the boat, the old fishing boat of Andrew and Peter, which was always kept at his disposal, and meditated on the next move to be made in the work of extending the kingdom. But the Master was not to be alone for long. Very soon the people from Capernaum and near-by villages began to arrive, and by ten o'clock that morning almost one thousand were assembled on shore near Jesus' boat and were clamoring for attention. Peter was now up and, making his way to the boat, said to Jesus, "Master, shall I talk to them?" But Jesus answered, "No, Peter, I will tell them a story." And then Jesus began the recital of the parable of the sower, one of the first of a long series of such parables which he taught the throngs that followed after him. This boat had an elevated seat on which he sat (for it was the custom to sit when teaching) while he talked to the crowd assembled along the shore. After Peter had spoken a few words, Jesus said:

151:1.2 (1688.4) "A sower went forth to sow, and it came to pass as he sowed that some seed fell by the wayside to be trodden underfoot and devoured by the birds of heaven. Other seed fell upon the rocky places where there was little earth,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because there was no depth to the soil, but as soon as the sun shone, it withered because it had no root whereby to secure moisture. Other seed fell among the thorns, and as the thorns grew up, it was choked so that it yielded no grain. Still other seed fell upon good ground and, growing, yielded, some thirtyfold, some sixtyfold, and some a hundredfold."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his parable, he said to the multitude,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51:1.3 (1689.1) The apostles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when they heard Jesus teach the people in this manner, were greatly perplexed; and after much talking among themselves, that evening in the Zebedee garden Matthew said to Jesus: "Master, what is the meaning of the dark sayings which you present to the multitude? Why do you speak in parables to those who seek the truth?" And Jesus answered:

151:1.4 (1689.2) "In patience have I instructed you all this time. To you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 undiscerning

를 멸망시키려고 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제시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자들은 가르침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단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들으러 온 자들은, 보기는 하되 진정으로 보지 못하며, 듣기는 하되 진정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내 자녀들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풍성히 소유하게 되겠지만,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고 선언하는, 영{靈}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끝까지 비유로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게 되는 반면, 우리 적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선지자가 그런 모든 분별력 없는 혼에 대해 진정으로 묘사했다: ‘이 백성의 가슴이 둔하게 됐고, 귀가 듣기에 둔감하고, 눈이 감겼으므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 **안드레와 도마가 예수**와 좀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정원의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토론했다.

2. 비유의 해석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집단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풍유이고, 각 장면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서 말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간파할 수 없으며, 당신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릴 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얘야, 나는 네게 아무 것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네가 그 비유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네 해석이 무엇인지, 먼저 내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결론에 도달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가는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 즉 무지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훔쳐 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아주 갑자기 싹 난 씨는,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깊은 이해심 안에 참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

multitudes and to those who seek our destruction, from now on,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shall be presented in parables. And this we will do so that those who really desire to enter the kingdom may discern the meaning of the teaching and thus find salvation, while those who listen only to ensnare us may be the more confounded in that they will see without seeing and will hear without hearing. My children, do you not perceive the law of the spirit which decrees that to him who has shall be given so that he sha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him who has not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has. Therefore will I henceforth speak to the people much in parables to the end that our friends and those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may find that which they seek, while our enemies and those who love not the truth may hear without understanding. Many of these people follow not in the way of the truth. The prophet did, indeed, describe all such undiscerning souls when he said: ‘For this people’s heart has waxed gross, and their ears are dull of hearing,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discern the truth and understand it in their hearts.’”

151:1.5 (1689.3) The apostles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ter’s words. As Andrew and Thomas talked further with Jesus,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withdrew to another portion of the garden where they engaged in earnest and prolonged discussion.

2.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151:2.1 (1689.4) Peter and the group about him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able of the sower was an allegory, that each feature had some hidden meaning, and so they decided to go to Jesus and ask for an explanation. Accordingly, Peter approached the Master, saying: “We are not able to penetrate the meaning of this parable, and we desire that you explain it to us since you say it is given us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Peter: “My son, I desire to withhold nothing from you, but first suppose you tell me what you have been talking about; what is your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151:2.2 (1689.5) After a moment of silence, Peter said: “Master, we have talked much concerning the parable, and this is the interpretation I have decided upon: The sower is the gospel preacher;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represents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gospel teaching. The birds which snatched away the seed that fell upon the hardened ground represent Satan, or the evil one, who steals away that which has been sown in the hearts of these ignorant ones. The seed which fell upon the rocky places, and which sprang up so suddenly, represents those superficial and

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그들의 헌신이 곧 사라지는, 피상적이고 생각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런 신자들은 비틀거리며; 유혹받으면 빠져들고 맴돕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꺼이 듣지만, 세상의 걱정거리와 정직하지 못한 부유함을 인정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진리를 듣고 --그들의 서로 다른 지적 재능으로 인해-- 다양한 정도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이 종교 체험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 또한 제시하고 싶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런 요청에 **나다니엘**만 반응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나는 **시몬 베드로**가 비유를 해석한 것에 관해 좋은 점을 많이 인정합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씨는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반면,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의 사자{使者}들을 나타냅니다. 딱딱한 땅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메시지에 무관심한 자들과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을 위시해서,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자를 나타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채어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 악의 유혹, 및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돌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새로운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지만,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현실에 부딪치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 영적 감지력이 부족한 감정적인 혼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에 매혹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들은 그 교훈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삶의 자존심, 질투, 시기심, 그리고 인간 실존의 근심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다양한 자질의 영적 빛을 소유한 남녀들이, 진리를 납득하고 그 영적 교훈에 반응하는 역량을 타고났으며,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은 심각한 토론을 시작하고 진지한 논쟁에 임했는데, 얼마간의 사람은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서로를 확신시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는 열성적이고 확신에 찬 노력에 열중했다.

unthinking persons who, when they hear the glad tidings, receive the message with joy; but because the truth has no real root in their deeper understanding, their devotion is short-lived in the face of tribulation and persecution. When trouble comes, these believers stumble; they fall away when tempted. The seed which fell among thorns represents those who hear the word willingly, but who allow the car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to choke the word of truth so that it becomes unfruitful. Now the seed which fell on good ground and sprang up to bear, some thirty,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fold, represents those who, when they have heard the truth, receive it with varying degrees of appreciation — owing to their differing intellectual endowments — and hence manifest these varying degrees of religious experience.”

151:2.3 (1690.1) Jesus, after listening to Peter's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asked the other apostles if they did not also have suggestions to offer. To this invitation only Nathaniel responded. Said he: “Master, while I recognize many good things about Simon Peter's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I do not fully agree with him. My idea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seed represents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le the sower stands for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on hardened ground represents those who have heard but little of the gospel, along with those who are indifferent to the message, and who have hardened their hearts. The birds of the sky that snatched away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represent one's habits of life, the temptation of evil, and the desires of the flesh. The seed which fell among the rocks stands for those emotional souls who are quick to receive new teaching and equally quick to give up the truth when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and realities of living up to this truth; they lack spiritual perception. The seed which fell among the thorns represents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truths of the gospel; they are minded to follow its teachings, but they are prevented by the pride of life, jealousy, envy, and the anxieties of human existence. The seed which fell on good soil, springing up to bear, some thirty,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fold, represents the natural and varying degrees of ability to comprehend truth and respond to its spiritual teachings by men and women who possess diverse endowments of spirit illumination.”

151:2.4 (1690.2) When Nathaniel had finished speaking, th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fell into serious discussion and engaged in earnest debate, some contending for the correctness of Peter's interpretation, while almost an equal number sought to defend Nathaniel's explanation of the parable. Meanwhile Peter and Nathaniel had withdrawn to the house, where they were involved in a vigorous and determined effort the one to

주님은 이런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뒀으며; 그리고 나서 손뼉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다시 그의 주위에 모이자, “내가 이 비유에 관해 말하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없느냐?”고 말쌌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에 **도마**가 말했다: “네, **주님**, 제가 몇 마디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바로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 설교를 위해 예화를 사용할 때, 우화(偶話)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며,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소한 세부사항을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또한, 자연을 비유로 든 말씀에서 그 모든 면으로부터 영적 유추(類推)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들은 단지 그런 비유의 진정한 목적에 혼란과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두 무리로 나뉘어 이 비유에 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이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위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역량까지도 방해할 만큼, 그런 의견을 열렬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옳았음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의 경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쌌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했다: “나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그가 말했다: “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를 원한다니,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위탁임을 실행할지라도,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며; 그런 모든 다른 정도의 결과는, 우리의 사역 환경에 내재해있는 조건, 즉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도마가 말을 마치자, 동료 설교자 대부분이 그에게 동의하려 했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갈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쌌다: “**도마**야, 잘했다; 너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봤지만;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내 비유에서 풍유를 만들려는 일의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도 너희에게 똑같이 기여했다. 마음 속에

convince and change the mind of the other.

151:2.5 (1690.3) The Master permitted this confusion to pass the point of most intense expression; then he clapped his hands and called them about him. When they had all gathered around him once more, he said, “Before I tell you about this parable, do any of you have aught to say?” Following a moment of silence, Thomas spoke up: “Yes, Master, I wish to say a few words. I remember that you once told us to beware of this very thing. You instructed us that, when using illustrations for our preaching, we should employ true stories, not fables, and that we should select a story best suited to the illustration of the one central and vital truth which we wished to teach the people, and that, having so used the story, we should not attempt to make a spiritual application of all the minor details involved in the telling of the story. I hold that Peter and Nathaniel are both wrong in their attempts to interpret this parable. I admire their ability to do these things, but I am equally sure that all such attempts to make a natural parable yield spiritual analogies in all its features can only result in confusion and serious misconception of the true purpose of such a parable. That I am right is fully proved by the fact that, whereas we were all of one mind an hour ago, now are we divided into two separate groups who hold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parable and hold such opinions so earnestly as to interfere, in my opinion, with our ability fully to grasp the great truth which you had in mind when you presented this parable to the multitude and subsequently asked us to make comment upon it.”

151:2.6 (1691.1) The words which Thomas spoke had a quieting effect on all of them. He caused them to recall what Jesus had taught them on former occasions, and before Jesus resumed speaking, Andrew arose, saying: “I am persuaded that Thomas is right, and I would like to have him tell us what meaning he attaches to the parable of the sower.” After Jesus had beckoned Thomas to speak, he said: “My brethren, I did not wish to prolong this discussion, but if you so desire, I will say that I think this parable was spoken to teach us one great truth. And that is that our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o matter how faithfully and efficiently we execute our divine commissions, is going to be attended by varying degrees of success; and that all such differences in results are directly due to conditions inherent in the circumstances of our ministry, conditions over which we have little or no control.”

151:2.7 (1691.2) When Thomas had finished speaking, the majority of his fellow preachers were about ready to agree with him, even Peter and Nathaniel were on their way over to speak with him, when Jesus arose and said: “Well done, Thomas; you have discerned the true meaning of parables; but both Peter and Nathaniel have done

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종종 유익을 얻게 할지도 모르지만, 너희가 그런 결론을 공개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해소됐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 칭찬했으며, **알파오**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 사도들은 잠자리 가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했다. **가롯 유다**도 매우 그럴듯한 해석을 내렸다. 열두 사도는 때때로 자기들끼리, 우화를 풀이하듯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쓰곤 했지만, 다시는 결코 그런 유추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으며,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때부터 자신의 대중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비유를 점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3. 비유에 대해 더 하신 말씀

사도들은 너무 비유에 몰두해서, 다음 날 저녁 전체가 비유를 더 깊이 토의하는 데 사용됐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날 밤 협의가 시작됐다: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너희는 항상 그들의 정신과 심성에 적당하도록,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다양한 지능과 기질의 대중 앞에 섰을 때에는, 각 계층의 청중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말로 가르칠 수 없지만, 너희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말할 수 있으며; 각 집단, 그리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자신의 지적 및 영적 재능에 따라서, 너희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빛을 비추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등불을 켤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하늘 나라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을 감춰두는 일이 전혀 없으며; 또한 끝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어떤 비밀도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듣는지도 생각하며;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비유에 관한 이어진 토론,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대한 계속된 훈육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you all equal good in that they have so fully shown the danger of undertaking to make an allegory out of my parables. In your own hearts you may often profitably engage in such flights of the speculative imagination, but you make a mistake when you seek to offer such conclusions as a part of your public teaching.”

151:2.8 (1691.3) Now that the tension was over, Peter and Nathaniel congratulated each other on their interpretations, a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pheus twins, each of the apostles ventured to make an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sower before they retired for the night. Even Judas Iscariot offered a very plausible interpretation. The twelve would often, among themselves, attempt to figure out the Master's parables as they would an allegory, but never again did they regard such speculations seriously. This was a very profitable session for th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especially so since from this time on Jesus more and more employed parables in connection with his public teaching.

3. MORE ABOUT PARABLES

151:3.1 (1691.4) The apostles were parable-minded, so much so that the whole of the next evening was devoted to the further discussion of parables. Jesus introduced the evening's conference by saying: “My beloved, you must always make a difference in teaching so as to suit your presentation of truth to the minds and hearts before you. When you stand before a multitude of varying intellects and temperaments, you cannot speak different words for each class of hearers, but you can tell a story to convey your teaching; and each group, even each individual, will be able to make his own interpretation of your parable in accordance with his own intellectual and spiritual endowments. You are to let your light shine but do so with wisdom and discretion. No man, when he lights a lamp, covers it up with a vessel or puts it under the bed; he puts his lamp on a stand where all can behold the light. Let me tell you that nothing is hid in the kingdom of heaven which shall not be made manifest; neither are there any secrets which shall not ultimately be made known. Eventually, all these things shall come to light. Think not only of the multitudes and how they hear the truth; take heed also to yourselves how you hear. Remember that I have many times told you: To him who has shall be given more, while from him who has not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thinks he has.”

151:3.2 (1692.1) The continued discussion of parables and further instruction as to their interpretation may be summarized and express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 둘 다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비유,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계를 “영 실체의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로 자주 암시했다.

2. 예수께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그가 이때부터 비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대체로 새로운 교육 방법이 됐다.

3. 예수께서는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음 몇 가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유는, 방대하게 다른 수준의 정신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판별력에 도전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적대감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공감하도록 촉진시킨다.

비유는, 알려진 것들에서 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고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 물질적이고 자연스런 것을 그 수단으로 동원한다.

비유는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도록 촉진한다. 비유는 많은 편견을 줄여주고, 새로운 진리를 정신 속에 은혜롭게 넣어주며,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자기 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룩한다.

비유의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직접 무시하는, 의식적인 지적 행동을 요구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해서 사고{思考}를 강화시키도록 이끌어준다.

비유 형식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으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그는 주로 모든 논쟁 및 전통 또는 확립된 권위와 외면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하게 된다.

또한 비유는 똑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보게 될 때, 그것에서 배웠던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는, 대중을 가르칠 때 왜 점점 더 비유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추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 주려고 애썼다.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비유

151:3.3 (1692.2) 1. Jesus advised against the use of either fables or allegories in teaching the truths of the gospel. He did recommend the free use of parables, especially nature parables. He emphasized the value of utilizing the *analogy* existing between the natural and the spiritual worlds as a means of teaching truth. He frequently alluded to the natural as “the unreal and fleeting shadow of spirit realities.”

151:3.4 (1692.3) 2. Jesus narrated three or four parables from the Hebrew scriptures,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method of teaching was not wholly new. However, it became almost a new method of teaching as he employed it from this time onward.

151:3.5 (1692.4) 3. In teaching the apostles the value of parables, Jesus called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151:3.6 (1692.5) The parable provides for a simultaneous appeal to vastly different levels of mind and spirit. The parable stimulates the imagination, challenges the discrimination, and provokes critical thinking; it promotes sympathy without arousing antagonism.

151:3.7 (1692.6) The parable proceeds from the things which are known to the discernment of the unknown. The parable utilizes the material and natural as a means of introducing the spiritual and the supermaterial.

151:3.8 (1692.7) Parables favor the making of impartial moral decisions. The parable evades much prejudice and puts new truth gracefully into the mind and does all this with the arousal of a minimum of the self-defense of personal resentment.

151:3.9 (1692.8) To reject the truth contained in parabolical analogy requires conscious intellectual action which is directly in contempt of one's honest judgment and fair decision. The parable conduces to the forcing of thought through the sense of hearing.

151:3.10 (1692.9) The use of the parable form of teaching enables the teacher to present new and even startling truths while at the same time he largely avoids all controversy and outward clashing with tradition and established authority.

151:3.11 (1693.1) The parable also possesses the advantage of stimulating the memory of the truth taught when the same familiar scenes are subsequently encountered.

151:3.12 (1693.2) In this way Jesus sought to acquaint his followers with many of the reasons underlying his practice of increasingly using parables in his public teaching.

151:3.13 (1693.3) Toward the close of the evening's lesson Jesus made his first comment on the

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했다:첫째로, 그 비유는 자신의 그때까지의 일을 다시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다가올 여생 동안 자신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 및 다른 천국 사자(使者)들이 대대로 사역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던지시 암시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또한 **에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반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는 데 의존했는데, 그들은 그가 한 모든 업적이 귀신과 마귀들의 두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졌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세력들의 직접 산물이라고 여겼으므로,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가 또한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을 알리는 자들에게는 생생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고소할 근거를 찾을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이제 내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 주겠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위해 시험하려고 한다:하늘 나라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며;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기 일을 보러 다니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랐으며,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가 알지 못했음에도, 그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됐다. 처음에는 싹이 났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왔으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결실이 맺혔다. 그런 후에, 곡식이 익으면 그가 곧 낫을 들고, 추수를 끝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여러 번 생각했지만,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결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4. 해변에서 말씀하신 다른 여러 비유

예수께서 다음날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했다:“하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은데;그러나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잡초를 덧뿌리고 급히 도망갔다. 그리하여 어린 싹들이 돌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이르자, 잡초들도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말했다;‘주인님,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잡초들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인들에게 대답했다;‘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인들이 말했다;‘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아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뽑아서 모으는 동안에, 곡식까지 뽑을 것이다. 차라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parable of the sower. He said the parable referred to two things: First, it was a review of his own ministry up to that time and a forecast of what lay ahead of him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on earth. And second, it was also a hint as to what the apostles and other messengers of the kingdom might expect in their ministr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ime passed.

151:3.14 (1693.4) Jesus also resorted to the use of parables as the best possible refutation of the studied effort of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to teach that all of his work was done by the assistance of demons and the prince of devils. The appeal to nature was in contravention of such teaching since the people of that day looked upon all natural phenomena as the product of the direct act of spiritual beings and supernatural forces. He also determined upon this method of teaching because it enabled him to proclaim vital truths to those who desired to know the better way while at the same time affording his enemies less opportunity to find cause for offense and for accusations against him.

151:3.15 (1693.5) Before he dismissed the group for the night, Jesus said: “Now will I tell you the last of the parable of the sower. I would test you to know how you will receive this: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man who cast good seed upon the earth; and while he slept by night and went about his business by day, the seed sprang up and grew, and although he knew not how it came about, the plant came to fruit. First there was the blade, then the ear, then the full grain in the ear. And then when the grain was ripe, he put forth the sickle, and the harvest was finished. He who has an ear to hear, let him hear.”

151:3.16 (1693.6) Many times did the apostles turn this saying over in their minds, but the Master never made further mention of this addition to the parable of the sower.

4. MORE PARABLES BY THE SEA

151:4.1 (1693.7) The next day Jesus again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but while he slept,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hastened away. And so when the young blades sprang up and later were about to bring forth fruit, there appeared also the weeds. Then the servants of this householder came and said to him: ‘Sir, did you not sow good seed in your field? Whence then come these weeds?’ And he replied to his servants, ‘An enemy has done this.’ The servants then asked their master, ‘Would you have us go out and pluck up these weeds?’ But he answered them and said: ‘No, lest while you are gathering them up, you uproot the wheat also. Rather let

자라게 두면,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잡초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 “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다. 지금은 겨자씨 하나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모든 목초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서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세 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루가 모두 발효됐다.”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진 어떤 보물 같다. 그는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것을 샀다.”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 같으며; 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 귀한 진주를 살 수 있도록 나가서 자기 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

“다시 말하는데, 하늘 나라는 마치 바다에 던진 끌어내기 식 그물과 같으며, 그것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이게 했다. 이윽고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자,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거기 앉아서 고기를 분류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예수께서 다른 여러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했다. 사실상, 이 시간 후부터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무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일반 청중에게 비유로 말씀한 후에, 밤 시간 동안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그 교훈을 더 충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곤 했다.

5. 케레스를 방문함

그 주 내내 대중이 계속 늘어났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서둘러 언덕으로 떠났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자, 인파는 다시 돌아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이른 오후에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마치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내가 군중 때문에 매우 피곤하니; 하루 휴식을 취하도록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의 특질이고 일 년 가운데 이 계절에 특히 그랬던, 격렬하고 갑작스런 폭풍우 하나를 만났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거의 700피트 낮아서, 높은 독으로 둘러있었고, 특히 서쪽이 더 그랬다. 호수에서 언

them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 harvest, when I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up first the weed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and then gather up the wheat to be stored in my barn.”

151:4.2 (1693.8) After the people had asked a few questions, Jesus spoke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man sowed in his field. Now a mustard seed is the least of seeds, but when it is full grown, it becomes the greatest of all herbs and is like a tree so that the birds of heaven are able to come and rest in the branches thereof.”

151:4.3 (1694.1)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and in this way it came about that all of the meal was leavened.”

151:4.4 (1694.2)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ich a man discovered. In his joy he went forth to sell all he had that he might have the money to buy the field.”

151:4.5 (1694.3)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merchant seeking goodly pearls; and having found one pearl of great price, he went out and sold everything he possessed that he might be able to buy the extraordinary pearl.”

151:4.6 (1694.4)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sweep net which was cast into the sea, and it gathered up every kind of fish. Now, when the net was filled, the fishermen drew it up on the beach, where they sat down and sorted out the fish, gathering the good into vessels while the bad they threw away.”

151:4.7 (1694.5) Many other parables spoke Jesus to the multitudes. In fact, from this time forward he seldom taught the masses except by this means. After speaking to a public audience in parables, he would, during the evening classes, more fully and explicitly expound his teachings to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5. THE VISIT TO KHERESA

151:5.1 (1694.6) The multitude continued to increase throughout the week. On Sabbath Jesus hastened away to the hills, but when Sunday morning came, the crowds returned. Jesus spoke to them in the early afternoon after the preaching of Peter, and when he had finished, he said to his apostles: “I am weary of the throngs;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that we may rest for a day.”

151:5.2 (1694.7) On the way across the lake they encountered one of those violent and sudden windstorm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Sea of Galilee, especially at this season of the year. This body of water is almost seven hundred feet below

덕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협곡이 거기 있었고, 낮에는 가열된 공기가 호수 위쪽으로 덩어리 지어 올라갔는데, 해가 진 후에는 협곡의 찬 공기가 호수로 급속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강풍이 때로는 빠르게 왔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곤 했다.

이 일요일 밤에 **예수**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가 만난 것은 바로 그런 저녁 강풍이었다. 짧은 전도자 가운데 일부를 태운 세 척의 배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매우 강렬했는데, 그것이 호수의 이 지역에 국한됐음에도, 서쪽 해변에는 폭풍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물결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했다. 빠른 바람은, 사도들이 채 돛을 감아 말기도 전에 돛을 찢어 버렸고, 그들은 이제 약 1마일 반 이상 떨어진 해안으로 가기 위해, 단지 부지런히 노 젓는 것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작은 지붕 아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들이 **벳새다**를 떠날 당시에 **주님**이 매우 피곤했으므로, 그들에게 건너편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었다. 예전에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건장하고 노련한 사공들이었으나, 그 폭풍우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심했다. 바람과 물결이 마치 장난감 배처럼 그들의 배를 높이 치솟게 했음에도, **예수**께서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오른 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가 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노를 내려놓고 **예수**께 뛰어가서 그를 깨우기 위해 심하게 흔들었으며, 그가 일어나자 소리쳤다: "**주님**,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 속으로 나오자, 먼저 **베드로**를 바라본 후, 고전하고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을 어두움 속으로 자세히 봤으며, 아직도 걱정이 돼서 자기 노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며 말씀했다: "어찌하여 너희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 신앙이 어디 있느냐? 평안하라, 조용하라." **예수**께서 이런 책망의 말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채 끝내기도 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불안한 혼을 진정하고 평강을 찾으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혼란된 공기가 평형점에 다다라서 아주 잠잠해졌다. 성난 물결이 거의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편 잠깐 소나기를 내렸던 검은 구름은 사라졌으며, 하늘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는 한,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우연하게 일어났지만,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이 영적 세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통제 아래 있다고 굳게 믿었으므로, 그런 사건을 자연의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특히 쉬웠다.

the level of the sea and is surrounded by high banks, especially on the west. There are steep gorges leading up from the lake into the hills, and as the heated air rises in a pocket over the lake during the day, there is a tendency after sunset for the cooling air of the gorges to rush down upon the lake. These gales come on quickly and sometimes go away just as suddenly.

151:5.3 (1694.8) It was just such an evening gale that caught the boat carrying Jesus over to the other side on this Sunday evening. Three other boats containing some of the younger evangelists were trailing after. This tempest was severe, notwithstanding that it was confined to this region of the lake, there being no evidence of a storm on the western shore. The wind was so strong that the waves began to wash over the boat. The high wind had torn the sail away before the apostles could furl it, and they were now entirely dependent on their oars as they laboriously pulled for the shore, a little more than a mile and a half distant.

151:5.4 (1694.9) Meanwhile Jesus lay asleep in the stern of the boat under a small overhead shelter. The Master was weary when they left Bethsaida, and it was to secure rest that he had directed them to sail him across to the other side. These ex-fishermen were strong and experienced oarsmen, but this was one of the worst gales they had ever encountered. Although the wind and the waves tossed their boat about as though it were a toy ship, Jesus slumbered on undisturbed. Peter was at the right-hand oar near the stern. When the boat began to fill with water, he dropped his oar and, rushing over to Jesus, shook him vigorously in order to awaken him, and when he was aroused, Peter said: "Master, don't you know we are in a violent storm? If you do not save us, we will all perish."

151:5.5 (1695.1) As Jesus came out in the rain, he looked first at Peter, and then peering into the darkness at the struggling oarsmen, he turned his glance back upon Simon Peter, who, in his agitation, had not yet returned to his oar, and said: "Why are all of you so filled with fear? Where is your faith? Peace, be quiet." Jesus had hardly uttered this rebuke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he had hardly bidden Peter seek peace wherewith to quiet his troubled soul, when the disturbed atmosphere, having established its equilibrium, settled down into a great calm. The angry waves almost immediately subsided, while the dark clouds, having spent themselves in a short shower, vanished, and the stars of heaven shone overhead. All this was purely coincidental as far as we can judge; but the apostles, particularly Simon Peter, never ceased to regard the episode as a nature miracle. It was especially easy for the men of that day to believe in nature miracles inasmuch as they firmly believed that all nature was a phenomenon directly under the control of spirit

예수께서는, 그들의 당황하는 기질에게 말하고 두려움에 혼들린 정신에게 말을 건 것이지, 본인의 말에 복종하라고 폭풍우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열두 사도에게 분명히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그런 사건에 자기 해석을 붙이기를 항상 고집했다. 이날 이후로 그들은, **주님**이 자연 요소들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간주하기를 계속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에게 순종했는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예수와 동역자들이 해변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으며, 그날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으므로,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변으로 올라가지 않고 모두 배에서 휴식을 취했다. 약 40명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저편 언덕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아버지** 나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기로 하자.”

6. 케레스의 미치광이

가까이 있는 호수 동쪽 해변 대부분이 그 위의 고원지대까지 경사가 완만했으나, 이 특정한 지점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어떤 곳의 해변은 호수 쪽으로 거의 수직을 이뤘다. **예수**께서 가까이 보이는 언덕바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했다: “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침을 먹고, 움막 아래 쉬면서 이야기하자.”

이 언덕바지 전체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들로 가득했다. 이런 동굴들 가운데 다수는 고대의 무덤이었다. 언덕을 반 정도 올라간 곳의 작고 비교적 평평한 지점에, **케레스**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동역자들이 이 무덤 가까이 지나가자, 이 언덕의 동굴에 살던 한 미치광이가 그들 앞으로 달려왔다. 이 미친 사람은 이 지역에 잘 알려졌다. 한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석굴 가운데 하나에 갇혀있었다. 그는 오래 전에 고랑을 부셔서, 이제는 무덤과 버려진 돌 무덤들 사이를 멋대로 배회하고 있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주기적인 광란 기로 고난당했다.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동료들 가운데서 상당히 잘 처신하는 기간도 제법 있었다. 그가 제정신이 든 이런 기간에, 한번은 **벧새다**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때 천국 복음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됐다. 그러나 곧 그의 격렬한 발작 단계가 찾아왔고, 무덤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큰소리로 신음하고 외쳐졌으며, 너무나도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forces and supernatural beings.

151:5.6 (1695.2) Jesus plainly explained to the twelve that he had spoken to their troubled spirits and had addressed himself to their fear-tossed minds, that he had not commanded the elements to obey his word, but it was of no avail. The Master's followers always persisted in plac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n all such coincidental occurrences. From this day on they insisted on regarding the Master as having absolute power over the natural elements. Peter never grew weary of reciting how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151:5.7 (1695.3) It was late in the evening when Jesus and his associates reached the shore, and since it was a calm and beautiful night, they all rested in the boats, not going ashore until shortly after sunrise the next morning. When they were gathered together, about forty in all, Jesus said: “Let us go up into yonder hills and tarry for a few days while we ponder over the problems of the Father's kingdom.”

6. THE KHERESA LUNATIC

151:6.1 (1695.4) Although most of the near-by eastern shore of the lake sloped up gently to the highlands beyond, at this particular spot there was a steep hillside, the shore in some places dropping sheer down into the lake. Pointing up to the side of the near-by hill, Jesus said: “Let us go up on this hillside for our breakfast and under some of the shelters rest and talk.”

151:6.2 (1695.5) This entire hillside was covered with caverns which had been hewn out of the rock. Many of these niches were ancient sepulchres. About halfway up the hillside on a small, relatively level spot was the cemetery of the little village of Kheresa. As Jesus and his associates passed near this burial ground, a lunatic who lived in these hillside caverns rushed up to them. This demented man was well known about these parts, having onetime been bound with fetters and chains and confined in one of the grottoes. Long since he had broken his shackles and now roamed at will among the tombs and abandoned sepulchres.

151:6.3 (1696.1) This man, whose name was Amos, was afflicted with a periodic form of insanity. There were considerable spells when he would find some clothing and deport himself fairly well among his fellows. During one of these lucid intervals he had gone over to Bethsaida, where he heard the preaching of Jesus and the apostles, and at that time had become a halfhearted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soon a stormy phase of his trouble appeared, and he fled to the tombs, where he moaned, cried out aloud, and so conducted himself as to terrorize all who chanced to meet him.

아모스는 **예수**를 알아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예수**여,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마귀에 붙들렸으니,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기적인 정신적 고난은, 그런 때에 악한 영들이나 더러운 영들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정신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주로 감정적인 것이었다--곧 그의 뇌는 심하게 병들어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기 발아래 짐승처럼 꾸부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몸을 굽혀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말씀했다: “**아모스**야, 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다. 네게 이 발작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명령한다.” **아모스**는 **예수**의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지능에 변화가 일어나서, 곧 자신의 올바른 정신을 되찾고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게 됐다. 이 무렵에 상당한 인파가 가까운 동네로부터 모여들었고, 고원지대에서 온 돼지 치는 자들과 합세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앉아서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돼지 치는 자들이 그 미치광이를 고친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마을로 급히 들어갔을 때, 돌보는 사람 없이 있던 서른 마리쯤 되는 돼지 떼를 개들이 습격해서, 대부분의 돼지를 절벽 너머 바다로 내몰았다. 그리고 **예수**의 출현과, 미치광이를 기적적으로 고쳤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이 우연한 돼지의 사건이 관련되어, **예수**께서 마귀들의 군대를 쫓아내어 **아모스**를 고친 후에, 이 마귀들을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고 바다로 내몰아 빠지게 해서 처치해버렸다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돼지 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렸고, 온 동네 사람이 이것을 믿었다.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히 믿었는데; 교란된 정신이 진정된 직후에, 돼지 떼가 언덕 가장 자리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봤고, 자기를 오랫동안 항상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준 바로 그 악한 영들을 돼지 떼가 가져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질환이 영구히 고쳐진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도마를 제외하고) **예수**의 사도들도 모두 그 돼지 사건이 **아모스**의 치유와 직접 관련 있다고 믿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원하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그날 대부분, **예수**께서는 **아모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이 미치광이로부터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에게 시달렸다. 그리하여 **예수**와 친구들은 단지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재촉하러 온 돼지_기르는 이방인 파견대표단 때문에,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들의 대변자

151:6.4 (1696.2) When Amos recognized Jesus, he fell down at his feet and exclaimed: “I know you, Jesus, but I am possessed of many devils, and I beseech that you will not torment me.” This man truly believed that his periodic mental affliction was due to the fact that, at such times, evil or unclean spirits entered into him and dominated his mind and body. His troubles were mostly emotional — his brain was not grossly diseased.

151:6.5 (1696.3) Jesus, looking down upon the man crouching like an animal at his feet, reached down and, taking him by the hand, stood him up and said to him: “Amos, you are not possessed of a devil; you have already heard the good news that you are a son of God.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this spell.” And when Amos heard Jesus speak these words, there occurred such a transformation in his intellect that he was immediately restored to his right mind and the normal control of his emotions. By this time a considerable crowd had assembled from the nearby village, and these people, augmented by the swine herders from the highland above them, were astonished to see the lunatic sitting with Jesus and his followers, in possession of his right mind and freely conversing with them.

151:6.6 (1696.4) As the swine herders rushed into the village to spread the news of the taming of the lunatic, the dogs charged upon a small and untended herd of about thirty swine and drove most of them over a precipice into the sea. And it was this incidental occurrence,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ce of Jesus and the supposed miraculous curing of the lunatic, that gave origin to the legend that Jesus had cured Amos by casting a legion of devils out of him, and that these devils had entered into the herd of swine, causing them forthwith to rush headlong to their destruction in the sea below. Before the day was over, this episode was published abroad by the swine tenders, and the whole village believed it. Amos most certainly believed this story; he saw the swine tumbling over the brow of the hill shortly after his troubled mind had quieted down, and he always believed that they carried with them the very evil spirits which had so long tormented and afflicted him. And this had a good deal to do with the permanency of his cure. It is equally true that all of Jesus’ apostles (save Thomas) believed that the episode of the swine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ure of Amos.

151:6.7 (1696.5) Jesus did not obtain the rest he was looking for. Most of that day he was thronged by those who came in response to the word that Amos had been cured, and who were attracted by the story that the demons had gone out of the lunatic into the herd of swine. And so, after only one night of rest, early Tuesday morning Jesus and his friends were awakened by a delegation of

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다: “갈릴리 어부들이여,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당신의 선지자도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인줄 알지만, 우리 고장의 신(神)들은 그를 알지 못하며, 많은 돼지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두려워하니, 여기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 예수께서는, “우리 장소로 돌아가자”고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했을 때, 아모스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예수께 간청했으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보여줘라.” 그리고 아모스는, 그의 고통 받는 혼으로부터 마귀들의 군대를 예수께서 내쫓았다는 것과, 이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몰살됐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는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닐 때까지, 자기를 위해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행했는지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these swine-raising gentiles who had come to urge that he depart from their midst. Said their spokesman to Peter and Andrew: “Fishermen of Galilee, depart from us and take your prophet with you. We know he is a holy man, but the gods of our country do not know him, and we stand in danger of losing many swine. The fear of you has descended upon us, so that we pray you to go hence.” And when Jesus heard them, he said to Andrew, “Let us return to our place.”

151:6.8 (1697.1) As they were about to depart, Amos besought Jesus to permit him to go back with them, but the Master would not consent. Said Jesus to Amos: “Forget not that you are a son of God. Return to your own people and show them what great things God has done for you.” And Amos went about publishing that Jesus had cast a legion of devils out of his troubled soul, and that these evil spirits had entered into a herd of swine, driving them to quick destruction. And he did not stop until he had gone into all the cities of the Decapolis, declaring what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제152편. 가버나움 위기로 이끈 사건들

⇨ 151

유랜시아 책

153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52편

가버나움 위기로 이끈 사건들

섹션

소개

1. 아이로의 집에서
2. 5천 명을 먹임
3. 왕으로 추대한 사건
4. 시몬 베드로가 밤에 본 환상
5. 벳새다로 돌아옴
6. 게네사렛에서
7. 예루살렘에서

PAPER 152

EVENTS LEADING UP TO THE
CAPERNAUM CRISIS

SECTIONS

Introduction

1. At Jairus's House
2. Feeding the Five Thousand
3. The King-Making Episode
4. Simon Peter's Night Vision
5. Back in Bethsaida
6. At Gennesaret
7. At Jerusalem

소개

케레사의 미치광이 **아모스**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벳새다**와 **가버나움**에 퍼졌으며, 그리하여 화요일 오전에 **예수**의 배가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군중 가운데는, **주님**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구실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새 감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마중 나와 모여 있던 그들과 이야기할 때, 회당장들 가운데 하나인 **아이로**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그의 발아래 엎드려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급히 가 줄 것을 간청하며 말했다: “**주님**,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부디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청을 듣고 말씀했다: “너와 함께 가겠다.”

예수께서 **아이로**와 함께 가자,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었던 큰 인파가, 무슨 일이 생길지 보기 위해 그들을 뒤따라갔다. 회당장의 집에 당도하기 조금 전에 그들이 좁은 길을 따라 급히 갈 때, 그리고 군중이 그를 밀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INTRODUCTION

152:0.1 (1698.1) THE story of the cure of Amos, the Kheresa lunatic, had already reached Bethsaida and Capernaum, so that a great crowd was waiting for Jesus when his boat landed that Tuesday forenoon. Among this throng were the new observers from the Jerusalem Sanhedrin who had come down to Capernaum to find cause for the Master's apprehension and conviction. As Jesus spoke with those who had assembled to greet him, Jairus,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made his way through the crowd and, falling down at his feet, took him by the hand and besought that he would hasten away with him, saying: “Master, my little daughter, an only child, lies in my home at the point of death. I pray that you will come and heal her.” When Jesus heard the request of this father, he said: “I will go with you.”

152:0.2 (1698.2) As Jesus went along with Jairus, the large crowd which had heard the father's request followed on to see what would happen. Shortly before they reached the ruler's house, as they hastened through a narrow street and as the

멈춰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외쳤다. 그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인파가 당신을 밀치고 우리를 짓밟을 정도까지 된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감지했으므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이 있던 한 여자에게 눈이 멈추자, 그 여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심한 혈루병{血漏病}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난당했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당신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확실히 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인파를 헤치고 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온전함을 얻었으며; 내 병이 치유됐음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자를 온전케 한 것은, 그에게 손을 댔 것이라 아니라 그 여자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일어난 많은 외견상 기적적 치유 가운데 좋은 본보기이지만, 어떤 면에서도 그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여자의 질병은 확실히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자의 신앙은, **주님**의 인격자 앞에 거하는 창조적 능력을 직접 붙잡은 그런 종류에 속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주님**의 인격자 앞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됐다. 그의 옷에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그것은 다만 그 여자의 믿음 중에서 미신적인 요소였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로니카**라는 이 여자를 앞으로 불러서, 그 정신에 잔존할 수 있는, 또는 이 치유를 목격한 그들의 정신 속에 존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는데: 두려워하며 치유를 몰래 받으려던 시도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채로, 또는 그의 옷에 손댄 것과 관련된 그 여자의 미신이 효과 있었다고 생각한 채로, **베로니카**가 그곳을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께서는, 병을 낫게 한 것은 그 여자의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었음을 모두가 알기 원했다.

1. 아이로의 집에서

아이로는 집으로 가는 여정이 지연되자, 당연히 몹시 초조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로**의 집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이 나와서 말했다: “**주님**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인의 말에 개의치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슬퍼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두려워 마

throng jostled him, Jesus suddenly stopped, exclaiming, “Someone touched me.” And when those who were near him denied that they had touched him, Peter spoke up: “Master, you can see that this crowd presses you, threatening to crush us, and yet you say ‘someone has touched me.’ What do you mean?” Then Jesus said: “I asked who touched me, for I perceived that living energy had gone forth from me.” As Jesus looked about him, his eyes fell upon a near-by woman, who, coming forward, knelt at his feet and said: “For years I have been afflicted with a scourging hemorrhage. I have suffered many things from many physicians; I have spent all my substance, but none could cure me. Then I heard of you, and I thought if I may but touch the hem of his garment, I shall certainly be made whole. And so I pressed forward with the crowd as it moved along until, standing near you, Master, I touched the border of your garment, and I was made whole; I know that I have been healed of my affliction.”

152:0.3 (1698.3) When Jesus heard this, he took the woman by the hand and, lifting her up, sai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go in peace.” It was her *faith* and not her *touch* that made her whole. And this case is a good illustration of many apparently miraculous cures which attended upon Jesus’ earth career, but which he in no sense consciously willed. The passing of time demonstrated that this woman was really cured of her malady. Her faith was of the sort that laid direct hold upon the creative power resident in the Master’s person. With the faith she had, it was only necessary to approach the Master’s person. It was not at all necessary to touch his garment; that was merely the superstitious part of her belief. Jesus called this woman, Veronica of Caesarea-Philippi, into his presence to correct two errors which might have lingered in her mind, or which might have persisted in the minds of those who witnessed this healing: He did not want Veronica to go away thinking that her fear in attempting to steal her cure had been honored, or that her superstition in associating the touch of his garment with her healing had been effective. He desired all to know that it was her pure and living *faith* that had wrought the cure.

1. AT JAIRUS’S HOUSE

152:1.1 (1699.1) Jairus was, of course, terribly impatient of this delay in reaching his home; so they now hastened on at quickened pace. Even before they entered the ruler’s yard, one of his servants came out, saying: “Trouble not the Master; your daughter is dead.” But Jesus seemed not to heed the servant’s words, for, taking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he turned and said to the grief-stricken father: “Fear not; only

라; 오직 믿기만 해라.”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대신 곡하는 자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음을 봤으며; 친척들은 이미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대곡(代哭)꾼을 방에서 내보낸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사도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대곡꾼들에게,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를 경멸하며 비웃었다. 이때 예수께서 그 여자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며;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예수께서는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손을 잡고 말씀했다: “딸아, 내가 네게 명하니, 깨어 일어나거라!” 소녀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방에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소녀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곧바로, 먹을 것을 가져다주라고 예수께서 지시했는데, 그 소녀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동요가 있었으므로, 가족을 모아놓고 그 소녀가 오랜 열병 후에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단지 잠에서 깨웠을 뿐,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다른 모든 사도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며;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이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다수의 외견상 기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추종자들에게는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 몰두했으며, 예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 모두에게 당부한 후에, 사도들과 함께 벳새다로 돌아왔다.

그가 아이로의 집에서 나왔을 때, 두 소경이 한 귀머거리 소년의 인도를 받아 그를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무렵에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다. 어디를 가든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님이 매우 지쳐 있어서, 친구들은 모두 그가 가르침과 치유를 계속하면 쓰러질 지경에 이를 것을 염려하게 됐다.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의 사도들까지도, 이 하나님_사람의 본성과 속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후일에 어떤 세대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진기한 사건들에 대해, 과학이나 종교가 조사해 볼 기회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은 물론 네바돈의 다른 어떤 세계에서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필사자 육신을 입은 동시에, 시간의 제한 및 대부분의 다른 물질적 제한을 초월하는 영적 재능을 겸비하는 모든 창조적 에너지 속성을 가진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세계에서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believe.” When he entered the house, he found the flute-players already there with the mourners, who were making an unseemly tumult; already were the relatives engaged in weeping and wailing. And when he had put all the mourners out of the room, he went in with the father and mother and his three apostles. He had told the mourners that the damsel was not dead, but they laughed him to scorn. Jesus now turned to the mother, saying: “Your daughter is not dead; she is only asleep.” And when the house had quieted down, Jesus, going up to where the child lay,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Daughter, I say to you, awake and arise!” And when the girl heard these words, she immediately rose up and walked across the room. And presently, after she had recovered from her daze, Jesus directed that they should give her something to eat, for she had been a long time without food.

152:1.2 (1699.2) Since there was much agitation in Capernaum against Jesus, he called the family together and explained that the maiden had been in a state of coma following a long fever, and that he had merely aroused her, that he had not raised her from the dead. He likewise explained all this to his apostles, but it was futile; they all believed he had raised the little girl from the dead. What Jesus said in explanation of many of these apparent miracles had little effect on his followers. They were miracle-minded and lost no opportunity to ascribe another wonder to Jesus. Jesus and the apostles returned to Bethsaida after he had specifically charged all of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152:1.3 (1699.3) When he came out of Jairus's house, two blind men led by a dumb boy followed him and cried out for healing. About this time Jesus' reputation as a healer was at its very height. Everywhere he went the sick and the afflicted were waiting for him. The Master now looked much worn, and all of his friends were becoming concerned lest he continue his work of teaching and healing to the point of actual collapse.

152:1.4 (1699.4) Jesus' apostles, let alone the common people, could not understand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is God-man. Neither has any subsequent generation been able to evaluate what took place on earth in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And there can never occur an opportunity for either science or religion to check up on these remarkable events for the simple reason that such an extraordinary situation can never again occur, either on this world or on any other world in Nebadon. Never again, on any world in this entire universe, will a being appear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t the same time embodying all the attributes of creative energy combined with spiritual endowments which transcend time and most other material limitations.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결과를, 남녀 필사자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렇게 직접 생생하게 보장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창조자이신 **미가엘**의 직접적인 현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이며, 그 당시의 그의 존재를--**곧 사람의 아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그의 부재{不在}로 인해 그런 물질 현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영적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에 어떤 종류의 제한이든지 부과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물질 존재로는 함께 거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 속에 현존하신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써, 온 인류의 정신에 내재하는 **아버지**의 영과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있게 했다.

2. 5천 명을 먹임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낮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교육했다.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는 모든 추종자가 며칠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한 주 동안의 휴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의 걸을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일 늘어났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새 야영장을 세우자고 제안했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은 **안식일**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므로,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 있기 원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눈에 띄지 않게 건너편 호숫가로 가서, **벳새다-유리아**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매우 필요했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소수의 전도자가 거기에 남아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였으며; 그들은 모두 동쪽 해안에 있는 이 공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이뤄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방향을 봤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모든 배를 타고, 그 뒤를 따르기 위해 출발했다. 배를 구하지 못한 자들은 그 호수 북쪽 끝을 돌아서 걸어갔다.

늦은 오후 무렵이 되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공원에서 **주님**을 찾아냈고, **주님**이 그들에게 잠시 말씀한 후에 **베드로**의 말이 이어졌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음식을 휴대했으며, 저녁식사 후에 **예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동안,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월요일 오후에는 대중{大衆}이 3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밤늦게 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또한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를 데리고 왔다.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152:1.5 (1700.1) Never before Jesus was on earth, nor since, has it been possible so directly and graphically to secure the results attendant upon the strong and living faith of mortal men and women. To repeat these phenomena, we would have to go into the immediate presence of Michael, the Creator, and find him as he was in those days — the Son of Man. Likewise, today, while his absence prevents such material manifestations, you should refrain from placing any sort of limitation on the possible exhibition of his *spiritual power*. Though the Master is absent as a material being, he is present as a spiritual influence in the hearts of men. By going away from the world, Jesus made it possible for his spirit to live alongside that of his Father which indwells the minds of all mankind.

2. FEEDING THE FIVE THOUSAND

152:2.1 (1700.2)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people by day while he instructed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at night. On Friday he declared a furlough of one week that all his followers might go home or to their friends for a few days before preparing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But more than one half of his disciples refused to leave him, and the multitude was daily increasing in size, so much so that David Zebedee desired to establish a new encampment, but Jesus refused consent. The Master had so little rest over the Sabbath that on Sunday morning, March 27, he sought to get away from the people. Some of the evangelists were left to talk to the multitude while Jesus and the twelve planned to escape, unnoticed, to the opposite shore of the lake, where they proposed to obtain much needed rest in a beautiful park south of Bethsaida-Julias. This region was a favorite resorting place for Capernaum folks; they were all familiar with these parks on the eastern shore.

152:2.2 (1700.3) But the people would not have it so. They saw the direction taken by Jesus' boat, and hiring every craft available, they started out in pursuit. Those who could not obtain boats fared forth on foot to walk around the upper end of the lake.

152:2.3 (1700.4) By late afternoon more than a thousand persons had located the Master in one of the parks, and he spoke to them briefly, being followed by Peter. Many of these people had brought food with them, and after eating the evening meal, they gathered about in small groups while Jesus' apostles and disciples taught them.

152:2.4 (1700.5) Monday afternoon the multitude had increased to more than three thousand. And still — way into the evening — the people continued to flock in, bringing all manner of sick folks with them.

사람이,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들을 목적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은 단순히 실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수요일 정오까지, 약 5천 명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벳새다_유리아** 남쪽에 있는 이 공원에 모였다. 이때에는 이 지역에서 우기{雨期}가 끝나는 철이었으므로 날씨가 좋았다.

빌립은 **예수**와 열두 사도를 위한 3일분 음식을 준비했었고, 모든 잔심부름을 맡은 소년 **마가**에게 그것을 돌보게 했다. 3일째 되던 이날 오후에, 거의 절반의 대중은 각자 가져온 음식이 거의 바닥 나 있었다. **세베대 다윗**은 그 인파를 먹이고 수용할만한 천막도시를 이곳에 세워놓지 않았다. 또한 **빌립** 역시 그런 대중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가 고팠음에도,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헤롯**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왕으로 즉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삼으려고, 모든 적의 관찰 구역을 벗어난 이 조용한 장소를 **예수**께서 선택했다는 속삭임이 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돼갔다.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진행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열두 사도까지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며, 젊은 전도자들이 특히 그랬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려는 이 계획에 동의한 사도는, **베드로, 요한, 열심당 시몬, 가롯 유다**였다.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도는, **안드레, 야고보, 나다니엘, 도마**였다. **마태, 빌립, 알패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예수**를 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이 음모의 주동자는, 새로 전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요압**이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야고보 알패오**에게,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오라고 시킨 수요일 오후 다섯 시 무렵에 설치된 무대 배경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우리가 이 대중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사흘이나 우리와 함께 있었고, 대부분이 배고프게 됐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다.”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쳐다봤고, 그때 **빌립**이 말했다:“**주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스스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가 성사될까봐 걱정하던 **안드레**가 재빨리 **빌립**의 말에 끼어들어 말했다:“그렇습니다. **주님**. 대중을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먹도록 하고, 그동안 당신은 잠시 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 열두 사도 가운데 다른 이들도 이 논의에 참여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러나 나는 그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며; 너희가 그들을 먹일 수 없겠느냐?” **빌립**에게는 이것이 너무 벅찬 일이었고, 그가 기탄없이 말했다:“**주님**, 이 시골 어디서 이 대중을 먹일만한 빵을 사겠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그들에게 점심을 먹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견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Hundreds of interested persons had made their plans to stop over at Capernaum to see and hear Jesus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and they simply refused to be disappointed. By Wednesday noon about five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ssembled here in this park to the south of Bethsaida-Julias. The weather was pleasant, it being near the end of the rainy season in this locality.

152:2.5 (1700.6) Philip had provided a three days' supply of food for Jesus and the twelve, which was in the custody of the Mark lad, their boy of all chores. By afternoon of this, the third day for almost half of this multitude, the food the people had brought with them was nearly exhausted. David Zebedee had no tented city here to feed and accommodate the crowds. Neither had Philip made food provision for such a multitude. But the people, even though they were hungry, would not go away. It was being quietly whispered about that Jesus, desiring to avoid trouble with both Herod and the Jerusalem leaders, had chosen this quiet spot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ll his enemies as the proper place to be crowned king. The enthusiasm of the people was rising every hour. Not a word was said to Jesus, though, of course, he knew all that was going on. Even the twelve apostles were still tainted with such notions, and especially the younger evangelists. The apostles who favored this attempt to proclaim Jesus king were Peter, John,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Those opposing the plan were Andrew, James, Nathaniel, and Thomas. Matthew, Philip, and the Alpheus twins were noncommittal. The ringleader of this plot to make him king was Joab, one of the young evangelists.

152:2.6 (1701.1) This was the stage setting about five o'clock on Wednesday afternoon, when Jesus asked James Alpheus to summon Andrew and Philip. Said Jesus: "What shall we do with the multitude? They have been with us now three days, and many of them are hungry. They have no food." Philip and Andrew exchanged glances, and then Philip answered: "Master, you should send these people away so that they may go to the villages around about and buy themselves food." And Andrew, fearing the materialization of the king plot, quickly joined with Philip, saying: "Yes, Master, I think it best that you dismiss the multitude so that they may go their way and buy food while you secure rest for a season." By this time others of the twelve had joined the conference. Then said Jesus: "But I do not desire to send them away hungry; can you not feed them?" This was too much for Philip, and he spoke right up: "Master, in this country place where can we buy bread for this multitude? Two hundred denarii worth would not be enough for lunch."

152:2.7 (1701.2) Before the apostles had an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들이 목자 잃은 양 같은 처지로 여기 있다. 나는 그들을 먹이기 원한다. 우리에게 무슨 음식이 남았느냐?” **빌립**이 **마태**, **유다**와 함께 말하는 동안, **안드레**가 소년 **마가**에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비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말했다: “저 소년에게 빵 다섯 개와 마른 생선 두 마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베드로**가, “게다가 우리는 아직 저녁 식사 전입니다”라고 재빨리 덧붙였다.

예수께서 잠시 침묵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사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갑자기 **안드레**에게 돌아서서, “그 빵과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했다. **안드레**가 바구니를 **예수**께 가져오자, **주님**이 말씀했다: “사람들을 100명씩 무리지어 풀밭에 앉게 하고, 각 무리마다 대표자를 정하는 한편, 모든 전도자를 여기 우리에게 불러와라.”

예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드린 후,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동역자들에게 전했으며, 차례대로 그것을 대중에게로 가져갔다. **예수**께서는 생선도 그런 식으로 떼어 나눠줬다. 그리고 이 대중이 먹고 배부르게 됐다. 그들이 다 먹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둬들여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이 조각을 다 거둬들였을 때, 열두 바구니에 가득했다. 그 굉장한 잔치에서 음식을 먹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됐다.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한 결과로 나타난 처음이자 유일한 자연의 기적이었다. 제자들은 기적이 아닌 많은 일을 기적이라 부르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 사역이었다. 이 경우에, 시간 요소와 가시적 생명 경로를 제거한 것 외에는, 늘 그러다시피, **미가엘**이 음식 요소들을 증가시켰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3. 왕으로 추대한 사건

초자연적 에너지로 5천 명을 먹인 일은, 인간적 연민에 창조적 권능을 더한 결과로 발생한 또 하나의 경우였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난 대중에게는, 당시의 **예수**의 명성에 이런 엄청난 기적까지 더해졌으므로, **주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선포하려는 계획에, 더 이상 개인의 지시가 필요치 않게 됐다. 그 착상은 인파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충족시켜 준 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심오하고 압도적이었다.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을 젖과 꿀로 다시 넘치게 해 줄 것이며, 광야에 있던 선조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생명의 빵을 자신들에게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Jesus turned to Andrew and Philip, saying: “I do not want to send these people away. Here they a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I would like to feed them. What food have we with us?” While Philip was conversing with Matthew and Judas, Andrew sought out the Mark lad to ascertain how much was left of their store of provisions. He returned to Jesus, saying: “The lad has left only five barley loaves and two dried fishes” — and Peter promptly added, “We have yet to eat this evening.”

152:2.8 (1701.3) For a moment Jesus stood in silence. There was a faraway look in his eyes. The apostles said nothing. Jesus turned suddenly to Andrew and said, “Bring me the loaves and fishes.” And when Andrew had brought the basket to Jesus, the Master said: “Direct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in companies of one hundred and appoint a leader over each group while you bring all of the evangelists here with us.”

152:2.9 (1701.4) Jesus took up the loaves in his hands, and after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 bread and gave to his apostles, who passed it on to their associates, who in turn carried it to the multitude. Jesus in like manner broke and distributed the fishes. And this multitude did eat and were filled. And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the disciples: “Gather up the broken pieces that remain over so that nothing will be lost.” And when they had finished gathering up the fragments, they had twelve basketfuls. They who ate of this extraordinary feast numbered about five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152:2.10 (1702.1) And this is the first and only nature miracle which Jesus performed as a result of his conscious preplanning. It is true that his disciples were disposed to call many things miracles which were not, but this was a genuine supernatural ministration. In this case, so we were taught, Michael multiplied food elements as he always does except for the elimination of the time factor and the visible life channel.

3. THE KING-MAKING EPISODE

152:3.1 (1702.2)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by supernatural energy was another of those cases where human pity plus creative power equaled that which happened. Now that the multitude had been fed to the full, and since Jesus' fame was then and there augmented by this stupendous wonder, the project to seize the Master and proclaim him king required no further personal direction. The idea seemed to spread through the crowd like a contagion. The reaction of the multitude to this sudden and spectacular supplying of their physical needs was profound and overwhelming. For a long time the Jews had been taught that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when he should come, would

수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대중이 그 기적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만장일치 반응이 있었다: “우리 왕이 여기 계시다.” 기적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드디어 온 것이었다.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의 눈에는, 먹일 수 있는 그 권능은 다스릴 권한이나 마찬가지였다. 잔치가 끝났을 때,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외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강력한 외침은, **예수**께서 통치할 권한을 주창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중의 이 힘찬 외침이 가까이 있는 바위에 반사되기도 전에, **예수**께서 큰 바위에 올라서서 오른 손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말씀했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의도는 좋지만, 너희는 좁은 안목과 물질 정신을 갖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이 건장한 **갈릴리인**은 동쪽 황혼의 황홀한 빛을 받으면서 거기에 위엄 있게 서 있었다. 숨죽이며 듣던 대중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면으로나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이는 너희 혼이 위대한 진리로 비춤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가 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했더냐?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늘 나라는 영적 형제관계이며, 아무도 물질적 왕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이 세상 자녀의 이런 영적 형제관계를 다스리는, 온전히 지혜롭고 전능한 **통치자**시다. 육신을 입은 **아들**을 너희가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영적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던 말이냐! 이제 너희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왕을 섬기고 싶다면, 너희 각자 마음 속에서 빛들의 **아버지**를 만유의 영 **통치자**로 추대해라.”

예수의 이런 말씀은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실망한 채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이, 그날부터 그에게 등을 돌린 후에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음식 조각을 거둬들인 열두 바구니 주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단지 심부름꾼 소년 **마가**만이,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홀로 언덕으로 떠나기 전에 **안드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내 형제들을 **세베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특히 네 동생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라.”

cause the land again to flow with milk and honey, and that the bread of life would be bestowed upon them as manna from heaven was supposed to have fallen upon their forefathers in the wilderness. And was not all of this expectation now fulfilled right before their eyes? When this hungry, undernourished multitude had finished gorging itself with the wonder-food, there was but one unanimous reaction: “Here is our king.” The wonder-working deliverer of Israel had come. In the eyes of these simple-minded people the power to feed carried with it the right to rule. No wonder, then, that the multitude, when it had finished feasting, rose as one man and shouted, “Make him king!”

152:3.2 (1702.3) This mighty shout enthused Peter and those of the apostles who still retained the hope of seeing Jesus assert his right to rule. But these false hopes were not to live for long. This mighty shout of the multitude had hardly ceased to reverberate from the near-by rocks when Jesus stepped upon a huge stone and, lifting up his right hand to command their attention, said: “My children, you mean well, but you are shortsighted and material-minded.” There was a brief pause; this stalwart Galilean was there majestically posed in the enchanting glow of that eastern twilight. Every inch he looked a king as he continued to speak to this breathless multitude: “You would make me king, not because your souls have been lighted with a great truth, but because your stomachs have been filled with bread.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is kingdom of heaven which we proclaim is a spiritual brotherhood, and no man rules over it seated upon a material throne. My Father in heaven is the all-wise and the all-powerful Ruler over this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on earth. Have I so failed in revealing to you the Father of spirits that you would make a king of his Son in the flesh! Now all of you go hence to your own homes. If you must have a king, let the Father of lights be enthroned in the heart of each of you as the spirit Ruler of all things.”

152:3.3 (1702.4) These words of Jesus sent the multitude away stunned and disheartened. Many who had believed in him turned back and followed him no more from that day. The apostles were speechless; they stood in silence gathered about the twelve baskets of the fragments of food; only the chore boy, the Mark lad, spoke, “And he refused to be our king.” Jesus, before going off to be alone in the hills, turned to Andrew and said: “Take your brethren back to Zebedee’s house and pray with them, especially for your brother, Simon Peter.”

4. 시몬 베드로가 밤에 본 환상

4. SIMON PETER'S NIGHT VISION

사도들은, --그들끼리만 가라고 보냈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배를 타고 호수 서쪽 해안 **벳새다**를 향해 말없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도, **시몬 베드로**만큼 좌절하고 풀이 죽어 있지는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으며; 그들은 모두, 언덕에서 홀로 지낼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그는 그들을 버린 것일까? 그렇게 그들 모두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절한 적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두움이 그들 위에 드리웠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세찬 맞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두움 속에서 여러 시간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베드로**가 피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를 배 고물에 있는 폭신한 자리로 옮겼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꿔며;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로 오는 환상을 봤다. **주님**이 배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가 외쳤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몇 마디 말을 들었다. 이런 밤의 환상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계속되는 중에, 그는 꿈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들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통스런 혼에 마치 **길르앗** 향료 같았으며; 그의 불안한 기질을 진정시켰고, 그리하여 (꿈속에서) **주님**께 외쳤다: "**주여**, 진정 당신이라면, 내게 오라고 명하셔서 당신과 함께 물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물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 거센 물결이 그를 놀라게 했고, 빠지려 하자 소리쳤다: "**주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열두 사도 중에서 여럿이 그의 이 외침소리를 들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구해주려 와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말씀하는 꿈을 꿔다: "오, 신앙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꿈의 후반부와 연관하여, **베드로**는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달려가 물에서 그를 끌어 올렸을 때, 그가 꿈에서 깨어났다.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항상 진짜였다. 그는 **예수**께서 그날 밤에 자신들에게 왔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그는 단지 **요한 마가**를 부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왜 **마가** 복음에 그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이 기록돼 있는지 설명해 준다. 의사 **누가**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자신의 기록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152:4.1 (1703.1) The apostles, without their Master — sent off by themselves — entered the boat and in silence began to row toward Bethsaida on the western shore of the lake. None of the twelve was so crushed and downcast as Simon Peter. Hardly a word was spoken; they were all thinking of the Master alone in the hills. Had he forsaken them? He had never before sent them all away and refused to go with them. What could all this mean?

152:4.2 (1703.2) Darkness descended upon them, for there had arisen a strong and contrary wind which made progress almost impossible. As the hours of darkness and hard rowing passed, Peter grew weary and fell into a deep sleep of exhaustion. Andrew and James put him to rest on the cushioned seat in the stern of the boat. While the other apostles toiled against the wind and the waves, Peter dreamed a dream; he saw a vision of Jesus coming to them walking on the sea. When the Master seemed to walk on by the boat, Peter cried out, "Save us, Master, save us." And those who were in the rear of the boat heard him say some of these words. As this apparition of the night season continued in Peter's mind, he dreamed that he heard Jesus say: "Be of good cheer; it is I; be not afraid." This was like the balm of Gilead to Peter's disturbed soul; it soothed his troubled spirit, so that (in his dream) he cried out to the Master: "Lord, if it really is you, bid me come and walk with you on the water." And when Peter started to walk upon the water, the boisterous waves frightened him, and as he was about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And many of the twelve heard him utter this cry. Then Peter dreamed that Jesus came to the rescue and, stretching forth his hand, took hold and lifted him up, saying: "O, you of little faith, wherefore did you doubt?"

152:4.3 (1703.3)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part of his dream Peter arose from the seat whereon he slept and actually stepped overboard and into the water. And he awakened from his dream as Andrew, James, and John reached down and pulled him out of the sea.

152:4.4 (1703.4) To Peter this experience was always real. He sincerely believed that Jesus came to them that night. He only partially convinced John Mark, which explains why Mark left a portion of the story out of his narrative. Luke, the physician, who made careful search into these matters, concluded that the episode was a vision of Peter's and therefore refused to give place to this story in the preparation of his narrative.

5. 벳새다로 돌아옴

5. BACK IN BETHSAIDA

목요일 아침 동 트기 전에, 그들은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에 배를 정박하고, 정오까지 잠을 자려고 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안드레**가 해변으로 산보하러 나갔다가, 심부름꾼 소년과 함께 물가에서 돌 위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했다. 대중 가운데 여러 명과 젊은 전도자들이, 온 밤과 다음날 온종일 동쪽 언덕 주변에서 **예수**를 찾아다녔음에도, 그는 자정이 조금 지난 후에 소년 **마가**를 데리고 걷기 시작해서 호수를 돌아 강을 건넜고, **벧새** **다**로 돌아왔다.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그리고 자신의 배는 채웠으나 심정은 공허했을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5천 명 가운데, 단지 약 5백 명만이 계속 그를 따라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벧새다**에 돌아왔음을 이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열두 사도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동역자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안드레**에게 요청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모두 준비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 모두 그토록 영적 납득이 느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단 말이나? 이 여러 달 동안 내, 내가 천국의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아직도 영적 해아림 대신 물질적 동기에 지배되고 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모세**가 훈계한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못했느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主)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다: ‘**주**를 신뢰하라.’ ‘인내함으로 **주**를 기다리고 담대하라.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네 짐을 **주**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께 피하는 것이, 인간 군주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거나 물질적 이적을 실행하는 것이 사람을 영적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 모두 알겠느냐? 우리가 대중을 배불리 먹었으나, 그것이 생명의 빵을 위한 배고픔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영적 의로움의 생수에 목말라하도록 인도하지도 못했다. 배고픔이 해결되자, 그들은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왕들의 방법을 따라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선포하려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여럿도 다소나마 관여했던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거나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진보시키는 것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집권자들의 비위를 거스르기 십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충분한 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너희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여, 내

152:5.1 (1703.5) Thursday morning, before daylight, they anchored their boat offshore near Zebedee's house and sought sleep until about noontime. Andrew was first up and, going for a walk by the sea, found Jesus, in company with their chore boy, sitting on a stone by the water's edge. Notwithstanding that many of the multitude and the young evangelists searched all night and much of the next day about the eastern hills for Jesus, shortly after midnight he and the Mark lad had started to walk around the lake and across the river, back to Bethsaida.

152:5.2 (1704.1) Of the five thousand who were miraculously fed, and who, when their stomachs were full and their hearts empty, would have made him king, only about five hundred persisted in following after him. But before these received word that he was back in Bethsaida, Jesus asked Andrew to assemble the twelv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including the women, saying, “I desire to speak with them.” And when all were ready, Jesus said:

152:5.3 (1704.2)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Are you all slow of spiritual comprehension and deficient in living faith? All these months have I taught you the truths of the kingdom, and yet are you dominated by material motives instead of spiritual considerations. Have you not even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Moses exhorted the unbelieving children of Israel, saying: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Said the singer: ‘Put your trust in the Lord.’ ‘Be patient, wait upon the Lord and be of good courage. 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you. Trust him at all times and pour out your heart to him, for God is your refuge.’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It is better to trust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human princes.’

152:5.4 (1704.3) “And now do you all see that the working of miracles and the performance of material wonders will not win souls for the spiritual kingdom? We fed the multitude, but it did not lead them to hunger for the bread of life neither to thirst for the waters of spiritual righteousness. When their hunger was satisfied, they sought not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rather sought to proclaim the Son of Man king after the manner of the kings of this world, only that they might continue to eat bread without having to toil therefor. And all this, in which many of you did more or less participate, does nothing to reveal the heavenly Father or to advance his kingdom on earth. Have we not sufficient enemies among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land without doing that which is likely to estrange also the civil rulers? I pray that the Father will anoint your eyes that you may see and open your ears that you may hear, to the end that you may have full faith in the gospel

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너희가 완전히 믿게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사도들과 물리로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고, 제자들이나 무리들 가운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삼일 휴식을 취하고 잠자기 위해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생의 큰 위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있는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온 **갈릴리**와 **유대지방**에 두루, 종교지도자들 및 집권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큰 기적은, 물질_성향의 사람들이나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더 진전시키는 일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예수**의 가까운 가족인 사도들 및 측근 제자들의 기적을_추구하고 왕을_열망하는 경향을 무르익게 하는 목적에는 도움이 됐다. 이 굉장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훈련, 및 치유로 이뤄진 초기 시절이 끝나게 됐고, 좀 더 높고 좀 더 영적인 국면의 새로운 천국 복음--곧 신성한 아들신분, 영적 해방,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발판이 됐다.

6. 게네사렛에서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어느 부유한 신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매일 오후 열두 사도와 비공식 협의를 했다. 천국의 대사들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각성된 사람들 중에서 잘 훈련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 열두 사람은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중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듯이, 날 때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온, **유대인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개념에서 아직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놀라운 사건들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어부들은 그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사회적 행동, 철학적 관점, 종교적 확신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을, 남자와 여자들이 철저히 널리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게네사렛**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대중은 해산됐는데, 더러는 집으로, 더러는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한 달 안 되는 동안, **갈릴리** 한 군데에서 5만 명 이상이던 열성적이고 공개적인 **예수**의 추종자들의 숫자가 5백 명도 안 되게 줄었다. **예수**께서는, 인기를 끄는 주장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제자들이 체험함으로써, 그들끼리 천국의 일을 하도록 남겨두고 떠난 후에, 그런 일시적인 종교적 흥분을 나타

which I have taught you.”

152:5.5 (1704.4) Jesus then announced that he wished to withdraw for a few days of rest with his apostles before they made ready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he forbade any of the disciples or the multitude to follow him. Accordingly they went by boat to the region of Gennesaret for two or three days of rest and sleep. Jesus was preparing for a great crisis of his life on earth, and he therefore spent much time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152:5.6 (1704.5) The news of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 attempt to make Jesus king aroused widespread curiosity and stirred up the fears of both the religious leaders and the civil rulers throughout all Galilee and Judea. While this great miracle did nothing to further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the souls of material-minded and halfhearted believers, it did serve the purpose of bringing to a head the miracle-seeking and king-craving proclivities of Jesus' immediate family of apostles and close disciples. This spectacular episode brought an end to the early era of teaching, training, and healing, thereby preparing the way for the inauguration of this last year of proclaiming the higher and more spiritual phase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 divine sonship, spiritual liberty, and eternal salvation.

6. AT GENNESARET

152:6.1 (1705.1) While resting at the home of a wealthy believer in the Gennesaret region, Jesus held informal conferences with the twelve every afternoon. The ambassadors of the kingdom were a serious, sober, and chastened group of disillusioned men. But even after all that had happened, and as subsequent events disclosed, these twelve men were not yet fully delivered from their inbred and long-cherished notions about the coming of the Jewish Messiah. Events of the preceding few weeks had moved too swiftly for these astonished fishermen to grasp their full significance. It requires time for men and women to effect radical and extensive changes in their basic and fundamental concepts of social conduct, philosophic attitudes, and religious convictions.

152:6.2 (1705.2) While Jesus and the twelve were resting at Gennesaret, the multitudes dispersed, some going to their homes, others going on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In less than one month's time the enthusiastic and open followers of Jesus, who numbered more than fifty thousand in Galilee alone, shrank to less than five hundred. Jesus desired to give his apostles such an experience with the fickleness of popular acclaim that they would not be tempted to rely on such

내는 것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런 노력에서 단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게네사렛에 체류한 둘째 날 밤에, **주님**이 다시 사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다: “애들아,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것이며; 오직 사람의 지능만을 향한 호소는, 속이 비고 열매 맺지 못하며; 오직 너희가 인간 정신 속에 살아있는 영에게 호소함으로써만, 영구적인 성공을 성취하고 인간 성품의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인간 성품은 신앙의 빛—곧 하늘 나라—속으로 영이 탄생됨으로써, 의심의 어두움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영의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곧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지적 관심에 주의를 끌고 초점을 맞추는 기법으로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이처럼 격동되고 예민해진 정신이 혼에 이르는 통로라고 했는데, 참된 성품 전환이라는 영구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진리를 인식하고 복음의 영적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이 혼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충격—즉 단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있을, 대중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 닥칠 위기—to 대비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열두 사도에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없애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좀 더 충분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진리가 물질적 경이를 통해서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됐다. 5천명을 먹인 사건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던 인기 높은 운동이,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에 대한 민중의 환호의 절정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분리와 혹독한 역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어렵게나마 식별하고, 모호하게 예견했다. 이 열두 사람은, 천국 대사로써 맡은 과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서서히 눈뜨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해에 다가올, 고되고 곤란한 호된 시련에 대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게네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인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는 단지, 왜 자신이 창조적 권능을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냈는지에 관해서만 말했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 뜻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manifestations of transient religious hysteria after he should leave them alone in the work of the kingdom, but he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in this effort.

152:6.3 (1705.3) The second night of their sojourn at Gennesaret the Master again told the apostles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added these words: “You see, my children, the appeal to human feelings is transitory and utterly disappointing; the exclusive appeal to the intellect of man is likewise empty and barren; it is only by making your appeal to the spirit which lives within the human mind that you can hope to achieve lasting success and accomplish those marvelous transformations of human character that are presently shown in the abundant yielding of the genuin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daily lives of all who are thus delivered from the darkness of doubt by the birth of the spirit into the light of faith — the kingdom of heaven.”

152:6.4 (1705.4) Jesus taught the appeal to the emotions as the technique of arresting and focusing the intellectual attention. He designated the mind thus aroused and quickened as the gateway to the soul, where there resides that spiritual nature of man which must recognize truth and respond to the spiritual appeal of the gospel in order to afford the permanent results of true character transformations.

152:6.5 (1705.5) Jesus thus endeavored to prepare the apostles for the impending shock — the crisis in the public attitude toward him which was only a few days distant. He explained to the twelve that the religious rulers of Jerusalem would conspire with Herod Antipas to effect their destruction. The twelve began to realize more fully (though not finally) that Jesus was not going to sit on David's throne. They saw more fully that spiritual truth was not to be advanced by material wonders. They began to realize tha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 popular movement to make Jesus king was the apex of the miracle-seeking, wonder-working expectance of the people and the height of Jesus' acclaim by the populace. They vaguely discerned and dimly foresaw the approaching times of spiritual sifting and cruel adversity. These twelve men were slowly awaking to the realization of the real nature of their task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they began to gird themselves for the trying and testing ordeals of the last year of the Master's ministry on earth.

152:6.6 (1706.1) Before they left Gennesaret, Jesus instructed them regarding the miraculo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elling them just why he engaged in this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creative power and also assuring them that he did not thus yield to his sympathy for the multitude until he had ascertained that it was “according to the Father's will.”

7. 예루살렘에서

4월 3일 일요일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만 데리고 **벳새다**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대중을 피하고 가능한 한 관심을 적게 끌기 위해, **거라사**와 **필라델피아**를 경유해서 여행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어떤 공개적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했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이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4월 6일 수요일 밤 늦게 도착했다. 이날 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함께 묵었지만, 다음 날 헤어졌다. 예수께서는 **요한**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근처에 있는 **시몬**이라 불리는 신자의 집에 머물렀다. **가롯 유다**와 **열심당 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고,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다른 가정에 체류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단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 축제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었다. 다수의 **예루살렘** 신자가 **아브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베다니**로 나왔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열두 사도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악화돼가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들은 모두 위기가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4월 24일 일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벳새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변도시들인, **옴바**, **가이사라**, **프톨레마이오스**를 경유하여 여행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육로로, **라마**, **고라신**을 지나서, 4월 29일 금요일에 **벳새다**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께서는 다음 **안식일** 오후 예배에 설교할 수 있게 주선하도록, **안드레**를 회당 지도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받을 마지막 기회임을 잘 알았다.

7. AT JERUSALEM

^{152:7.1 (1706.2)} Sunday, April 3, Jesus, accompanied only by the twelve apostles, started from Bethsaida on the journey to Jerusalem. To avoid the multitudes and to attract as little attention as possible, they journeyed by way of Gerasa and Philadelphia. He forbade them to do any public teaching on this trip; neither did he permit them to teach or preach while sojourning in Jerusalem. They arrived at Bethany, near Jerusalem, late on Wednesday evening, April 6. For this one night they stopped at the home of Lazarus, Martha, and Mary, but the next day they separated. Jesus, with John, stayed at the home of a believer named Simon, near the house of Lazarus in Bethany. Judas Iscariot and Simon Zelotes stopped with friends in Jerusalem, while the rest of the apostles sojourned, two and two, in different homes.

^{152:7.2 (1706.3)} Jesus entered Jerusalem only once during this Passover, and that was on the great day of the feast. Many of the Jerusalem believers were brought out by Abner to meet Jesus at Bethany. During this sojourn at Jerusalem the twelve learned how bitter the feeling was becoming toward their Master. They departed from Jerusalem all believing that a crisis was impending.

^{152:7.3 (1706.4)} On Sunday, April 24, Jesus and the apostles left Jerusalem for Bethsaida, going by way of the coast cities of Joppa, Caesarea, and Ptolemais. Thence, overland they went by Ramah and Chorazin to Bethsaida, arriving on Friday, April 29. Immediately on reaching home, Jesus dispatched Andrew to ask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permission to speak the next day, that being the Sabbath, at the afternoon service. And Jesus well knew that that would be the last time he would ever be permitted to speak in the Capernaum synagogue.

제153편. 가버나움에 임한 위기

⇨ 152

유랜시아 책

15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53편
가버나움에 임한 위기

섹션

소개

1. 무대의 배경
2. 획기적인 설교
3. 설교 후 모임
4. 회당에서 마지막 말씀
5. 토요일 밤

PAPER 153
THE CRISI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tting of the Stage
2. The Epochal Sermon
3. The After Meeting
4. Last Words in the Synagogue
5. The Saturday Evening

소개

그들이 **벳새다**에 도착했던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사도들은 **예수**께서 어떤 중대한 문제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봤으며, **주님**이 평상시와는 달리 어떤 중요한 내용을 숙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주님**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한낮에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안식일** 오전 내내 그리고 저녁 전까지, 열두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집 주위와 정원과 해변을 따라 작은 무리들로 모여 있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한 느낌이 그들 주위에 맴돌았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 **예수**께서는 거의 말씀이 없었다.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몰입되어 침묵하는 모습을 여러 달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시몬 베드로**조차 기가 꺾이지는 않았으나 우울했다. **안드레**는 낙심한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다. **나다니엘**은 자신들이 “폭풍 전의 고요함” 한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도마**는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빌립**은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전에는, 대중을 먹이고 재우는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태**는 재정을 다시 채우기 위해 새롭게 노력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회당에서 하게 될 설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본질과 범위에 관해서 예견

INTRODUCTION

153:0.1 (1707.1) ON FRIDAY evening, the day of their arrival at Bethsaida, and on Sabbath morning, the apostles noticed that Jesus was seriously occupied with some momentous problem; they were cognizant that the Master was giving unusual thought to some important matter. He ate no breakfast and but little at noontide. All of Sabbath morning and the evening before, the twelve and their associates were gathered together in small groups about the house, in the garden, and along the seashore. There was a tension of uncertainty and a suspense of apprehension resting upon all of them. Jesus had said little to them since they left Jerusalem.

153:0.2 (1707.2) Not in months had they seen the Master so preoccupied and uncommunicative. Even Simon Peter was depressed, if not downcast. Andrew was at a loss to know what to do for his dejected associates. Nathaniel said they were in the midst of the “lull before the storm.” Thomas expressed the opinion that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is about to happen.” Philip advised David Zebedee to “forget about plans for feeding and lodging the multitude until we know what the Master is thinking about.” Matthew was putting forth renewed efforts to replenish the treasury. James and John talked over the

해 왔다. **열심당 시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실 것이라는 신념,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발표했으며, 한편 **가롯 유다**는 감히, “**예수**께서는 5천 명이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도록 허락할 용기와 대담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금 아마도 후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에, 우울하고 마음들 곳을 모르는 그런 추종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획기적인 설교를 전하기 위해 나섰다. 측근 추종자 중에서 의심 없는 **알패오** 쌍둥이 형제만이 유쾌한 인사와 희망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회당으로 가려고 집을 나설 때, 명랑하게 인사하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중이 모여들기를 기원합니다.”

1. 무대의 배경

이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 세 시에,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이, 새로 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를 맞이했다. **아이로**가 관장했고, **성서**를 읽도록 **예수**께 건넸다. 그 전날, 53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했으며; 또한 근처 회당들에서도 30명 넘는 지도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아서 행동했고, **예수**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싸움을 선포하러 온 정통과 선봉대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회당의 명예석에 앉아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 옆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공식 감시인들이 자리 잡았으며, 그들은 **헤롯**의 형제 **빌립**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서민들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려 했던 사건에 대한 보고의 진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늘어나는 적들이 공언하던 공개적인 압박한 전쟁 선포에 직면하고 있음을 납득했으며, 대담하게 그 공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그들의 물질적 **메시아** 개념에 도전했으며; 이제는 이들의 **유대** 구원자의 개념을 다시 드러내놓고 공격하기로 선택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이 **안식일** 오후 설교로 종결됐던 이 위기가, 대중적 명성과 갈채의 형세를 뒤집었다. 이후부터, 천국 업무는 더 중요한 과제, 즉 인류의 진정으로 종교적인 형제관계를 향한, 오래 지속되는 영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점점 더 치중됐다. 이 설교는, 토의하고, 논쟁하고, 결정하는 기간으로부터, 드러내놓고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배척하든지 하는 기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표

forthcoming sermon in the synagogue and speculated much as to its probable nature and scope. Simon Zelotes expressed the belief, in reality a hope, that “the Father in heaven may be about to intervene in some unexpected manner for the vindication and support of his Son,” while Judas Iscariot dared to indulge the thought that possibly Jesus was oppressed with regrets that “he did not have the courage and daring to permit the five thousand to proclaim him king of the Jews.”

153:0.3 (1707.3) It was from among such a group of depressed and disconsolate followers that Jesus went forth on this beautiful Sabbath afternoon to preach his epoch-making sermon in the Capernaum synagogue. The only word of cheerful greeting or well-wishing from any of his immediate followers came from one of the unsuspecting Alpheus twins, who, as Jesus left the house on his way to the synagogue, saluted him cheerily and said: “We pray the Father will help you, and that we may have bigger multitudes than ever.”

1. THE SETTING OF THE STAGE

153:1.1 (1707.4) A distinguished congregation greeted Jesus at three o'clock on this exquisite Sabbath afternoon in the new Capernaum synagogue. Jairus presided and handed Jesus the Scriptures to read. The day before, fifty-three Pharisees and Sadducees had arrived from Jerusalem; more than thirty of the leaders and rulers of the neighboring synagogues were also present. These Jewish religious leaders were acting directly under orders from the Sanhedrin at Jerusalem, and they constituted the orthodox vanguard which had come to inaugurate open warfare on Jesus and his disciples. Sitting by the side of these Jewish leaders, in the synagogue seats of honor, were the official observers of Herod Antipas, who had been directed to ascertain the truth concerning the disturbing reports that an attempt had been made by the populace to proclaim Jesus the king of the Jews, over in the domains of his brother Philip.

153:1.2 (1708.1) Jesus comprehended that he faced the immediate declaration of avowed and open warfare by his increasing enemies, and he elected boldly to assume the offensive. A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he had challenged their ideas of the material Messiah; now he chose again openly to attack their concept of the Jewish deliverer. This crisis, which began wit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which terminated with this Sabbath afternoon sermon, was the outward turning of the tide of popular fame and acclaim. Henceforth, the work of the kingdom was to be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more important task of winning lasting spiritual converts for the truly religious brotherhood of mankind. This sermon marks the

시켰다.

주님은, 추종자 가운데 다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국 자신을 배척하는 쪽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수의 제자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신의 훈련과 혼의 단련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천국 복음 안에서 충분히 진전된 신앙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알았다. **예수**께서는, 선과 악이 반복되는 상황들 사이에서 되풀이하여 선택하는 느린 과정을 통해서, 위기에 결정을 내릴 각오를,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갑작스런 행위를 수행할 각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전도자들이 반복해서 실망을 연습하도록 만들었으며, 영적 고난에 대처하는 옳고 그른 방법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빈번하고 극히 곤란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 그는, 추종자들이 전에 하던 습관적인 정신 태도와 영적 반응에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겪게 될 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위기는, 5천 명을 먹인 것으로 시작되고, 회당에서 이번 설교로 끝났으며; 사도들의 생애에서 위기는, 회당에서 이 설교로 시작해서, 한 해 전체 동안 계속됐고,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으로 겨우 끝났다.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들이 그날 오후 회당에 앉아 있는 중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큰 불가사의, 즉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친구들이나 적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는 인기 있는 열광의 물결에 그토록 고의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등을 돌리는 것일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만에 찬 지지자들의 그런 의심과 실망이 무의식적 반감을 유발시켰고, 그것이 나중에 진짜 증오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설교 직전과 직후의 일이었다. **가롯 유다**가 처음으로 의식하여 배신하려는 생각을 한 것은,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한 후였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 그런 모든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모든 사람이 혼동된 상태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런 상태로 내버려뒀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전체 업적의 특징을 나타내는 초자연적 권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개념에 가장 가깝게 갔던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이점(利點)은, 그가 왕이 되기를 재빠르고 명백하게 거절함으로써,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쇄됐다.

금요일 밤에, 그리고 **안식일** 오전에 다시, **예**

crisis in the transition from the period of discussion, controversy, and decision to that of open warfare and final acceptance or final rejection.

153:1.3 (1708.2) The Master well knew that many of his followers were slowly but surely preparing their minds finally to reject him. He likewise knew that many of his disciples were slowly but certainly passing through that training of mind and that discipline of soul which would enable them to triumph over doubt and courageously to assert their full-fledge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Jesus fully understood how men prepare themselves for the decisions of a crisis and the performance of sudden deeds of courageous choosing by the slow process of the reiterated choosing between the recurring situations of good and evil. He subjected his chosen messengers to repeated rehearsals in disappointment and provided them with frequent and testing opportunities for choosing between the right and the wrong way of meeting spiritual trials. He knew he could depend on his followers, when they met the final test, to make their vital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prior and habitual mental attitudes and spirit reactions.

153:1.4 (1708.3) This crisis in Jesus' earth life began wit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ended with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the crisis in the lives of the apostles began with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and continued for a whole year, ending only with the Master's trial and crucifixion.

153:1.5 (1708.4) As they sat there in the synagogue that afternoon before Jesus began to speak, there was just one great mystery, just one supreme question, in the minds of all. Both his friends and his foes pondered just one thought, and that was: "Why did he himself so deliberately and effectively turn back the tide of popular enthusiasm?" And it was immediately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is sermon that the doubts and disappointments of his disgruntled adherents grew into unconscious opposition and eventually turned into actual hatred. It was after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that Judas Iscariot entertained his first conscious thought of deserting. But he did, for the time being, effectively master all such inclinations.

153:1.6 (1708.5) Everyone was in a state of perplexity. Jesus had left them dumfounded and confounded. He had recently engaged in the greatest demonstration of supernatural power to characterize his whole career.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was the one event of his earth life which made the greatest appeal to the Jewish concept of the expected Messiah. But this extraordinary advantage was immediately and unexplainedly offset by his prompt and unequivocal refusal to be made king.

153:1.7 (1709.1) On Friday evening, and again on

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이로**를 오랫동안 열심히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이로**는 모든 요청에 단지: “나는 이미 이 요청을 승낙했으며, 이제 와서 내 말을 번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2. 획기적인 설교

예수께서는 **신명기**에서 찾은 대로 율법을 읽음으로써 이 설교를 시작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저주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주**께서 너희 적들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속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그리고 너희 위에 세운 왕을, 생소한 나라의 수중에 넘기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경악의 대상과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은 포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낮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데, 너희는 지극히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에게 영원히 임할 것인데,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대적하러 나오게 될 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야 할 것이고, 쇠로 만든 이런 이방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도록, 한 나라, 즉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나라, 사나운 모습의 나라, 너희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을 나라를 먼 곳 땅 끝에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매우 의존하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며; 온 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 대한 적의 압제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기 육신의 열매인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 포위 기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 읽은 후에, **선지서**들로 넘어갔고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 온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게 하고, 이 도시를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쌌다. 그리고 **유다**의 왕자들이 이 일을 듣고, **예레미야**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왕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당신들의 귀로 들음같이 우리 성(城)을 대적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왕자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의 들은바 이 집을 치고 이 성을 치는 예언을 하게 하셨

Sabbath morning, the Jerusalem leaders had labored long and earnestly with Jairus to prevent Jesus' speaking in the synagogue, but it was of no avail. Jairus's only reply to all this pleading was: "I have granted this request, and I will not violate my word."

2. THE EPOCHAL SERMON

153:2.1 (1709.2) Jesus introduced this sermon by reading from the law as found in Deuteronomy: "But it shall come to pass, if this people will not hearken to the voice of God, that the curses of transgression shall surely overtake them. The Lord shall cause you to be smitten by your enemies; you shall be removed in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the Lord shall bring you and the king you have set up over you into the hands of a strange nation. You shall become an astonishmen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nations.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go into captivity. The strangers among you shall rise high in authority while you are brought very low. And these things shall be upon you and your seed forever because you would not hearken to the word of the Lord. Therefore shall you serve your enemies who shall come against you. You shall endure hunger and thirst and wear this alien yoke of iron. The Lord shall bring against you a nation from afar, from the end of the earth, a nation whose tongue you shall not understand, a nation of fierce countenance, a nation which will have little regard for you. And they shall besiege you in all your towns until the high fortified walls wherein you have trusted come down; and all the land shall fall into their hand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you will be driven to eat the fruit of your own bodies, the flesh of your sons and daughters, during this time of siege, because of the straitness wherewith your enemies shall press you."

153:2.2 (1709.3) And when Jesus had finished this reading, he turned to the Prophets and read from Jeremiah: "If you will not hearken to the words of my servants the prophets whom I have sent you, then will I make this house like Shiloh, and I will make this city a curse to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the priests and the teachers heard Jeremiah speak these words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remiah had made an end of speaking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to speak to all the people, the priests and teachers laid hold of him, saying, "You shall surely die." And all the people crowded around Jeremiah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when the princes of Judah heard these things, they sat in judgment on Jeremiah. Then spoke the priests and the teachers to the princes and to all the people, saying: "This man is worthy to die, for he has prophesied against our city, and you have heard him with your own ears." Then spoke

고, 너희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고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며, 이는 **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생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경고한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를 줄로 달아매어 더러운 구덩이에 밀어 넣어, 진흙 속에서 겨드랑이까지 빠지게 했다. 이것이, 임박한 정치적 타락에 대해 형제들에게 경고하라는 **주**의 명령에 **예레미야**가 복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영적 파멸을 감히 경고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대담하게 선포하고, 하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빛의 길을 걸어가기로 거절하는 너희를 지적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을, 너희 역시 죽이려 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 내 사명에 대한 증거로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동안,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가 존경하는 것에 대해 적개심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에 찬 혼을 위 한 새로운 자유를 선포해 왔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형제관계, 즉 하늘 나라를 설립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토록 여러 번 환기시켰음에도, 내 **아버지**께서는 좀 더 증거가 되는 영적 전환과 개혁 이외에, 많은 물질적 경이의 현시를 여전히 허락하셨다.

“너희가 내 손에서 찾는 새로운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선언하겠는데, 너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가졌다. 오늘 내 앞에 앉은 많은 이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너희는 지금 어떤 길로 가야할지 선택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슈아**가 너희 선조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했듯이, 오늘 너희 가운데 많은 이가 그 갈림길에 서있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건너편에서 대중을 먹인 후에 나를 찾지 못하자, 일주일 전에 폭풍이 있을 동안 근처에서 대피하고 있던 **디베라**의 어선을 빌려 나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진리, 의로움, 또는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보살

Jeremiah to all the princes and to all the people: ‘The Lord sent me to prophesy against this house and against this city all the words which you have heard. Now, therefore, amend your ways and reform your doings and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that you may escape the evil which has been pronounced against you. As for me, behold I am in your hands. Do with me as seems good and right in your eyes. But know you for certain that, if you put me to death, you shall bring innocent blood upon yourselves and upon this people, for of a truth the Lord has sent me to speak all these words in your ears.’

153:2.3 (1710.1) “The priests and teachers of that day sought to kill Jeremiah, but the judges would not consent, albeit, for his words of warning, they did let him down by cords in a filthy dungeon until he sank in mire up to his armpits. That is what this people did to the Prophet Jeremiah when he obeyed the Lord’s command to warn his brethren of their impending political downfall. Today, I desire to ask you: What will the chief priests and religious leaders of this people do with the man who dares to warn them of the day of their spiritual doom? Will you also seek to put to death the teacher who dares to proclaim the word of the Lord, and who fears not to point out wherein you refuse to walk in the way of light which leads to the entrance to the kingdom of heaven?

153:2.4 (1710.2) “What is it you seek as evidence of my mission on earth? We have left you undisturbed in your positions of influence and power while we preached glad tidings to the poor and the outcast. We have made no hostile attack upon that which you hold in reverence but have rather proclaimed new liberty for man’s fear-ridden soul. I came into the world to reveal my Father and to establish on earth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And notwithstanding that I have so many times reminde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still has my Father granted you many manifestations of material wonders in addition to more evidential spiritual transformations and regenerations.

153:2.5 (1710.3) “What new sign is it that you seek at my hands? I declare that you already have sufficient evidence to enable you to make your decision. Verily, verily, I say to many who sit before me this day, you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hoosing which way you will go; and I say to you, as Joshua said to your forefathers, ‘choose you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Today, many of you stand at the parting of the ways.

153:2.6 (1710.4) “Some of you, when you could not find me after the feasting of the multitude on the other side, hired the Tiberias fishing fleet, which a week before had taken shelter near by during a storm, to go in pursuit of me, and what for? Not for

피는 방법을 더 알고자 함이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편안하게 얻는 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선택된 백성에게 유쾌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너희는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러므로 그렇게 배운 너희가 빵과 생선을 고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에게 선언하겠는데, 그런 것은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다. 나는 영적 자유를 선포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있는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왔다.

“형제들아, 썩어질 고기를 열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음식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은, 그 음식을 받아먹을 모든 자에게 **사람의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이니,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셀 수 없이 풍성하게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내게 질문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대답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새로 지은 이 회당의 가로 들보를 장식한, 그리고 포도송이들로 아름답게 꾸민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했다: “너희는 선조가 광야에서 만나를--곧 하늘의 빵을--먹었다고 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빵이었다. **모세**는 너희 선조에게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으나,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빵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신다. 하늘의 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주는 이 빵을 달라고 내게 말할 때, 내가 대답할 것이다: 내가 이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봤고, 나와 함께 살았으며, 내가 한 일을 봤지만, 너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데--두려워 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온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하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최종적인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어제 내가 너희 육신을 위한 빵을 너희에게 줬으나; 오늘은 내가 너희 굶주린 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빵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그때 그토록 기꺼이 이 세상의 빵을 먹었던 것 같이, 이제 영의 빵을 먹겠느냐?”

예수께서 잠시 멈추고 회중을 돌아보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곧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하나

truth and righteousness or that you might the better know how to serve and minister to your fellow men! No, but rather that you might have more bread for which you had not labored. It was not to fill your souls with the word of life, but only that you might fill the belly with the bread of ease. And long have you been taught that the Messiah, when he should come, would work those wonders which would make life pleasant and easy for all the chosen people. It is not strange, then, that you who have been thus taught should long for the loaves and the fishes. But I declare to you that such is not the mission of the Son of Man. I have come to proclaim spiritual liberty, teach eternal truth, and foster living faith.

153:2.7 (1710.5) “My brethren, hanker not after the meat which perishes but rather seek for the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even to eternal life; and this is the bread of life which the Son gives to all who will take it and eat, for the Father has given the Son this life without measure. And when you asked me, ‘What must we do to perform the works of God?’ I plainly told you: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him whom he has sent.’”

153:2.8 (1710.6) And then said Jesus, pointing up to the device of a pot of manna which decorated the lintel of this new synagogue, and which was embellished with grape clusters: “You have thought that your forefathers in the wilderness ate manna — the bread of heaven — but I say to you that this was the bread of earth. While Moses did not give your fathers bread from heaven, my Father now stands ready to give you the true bread of life. The bread of heaven is that which comes down from God and gives eternal life to the men of the world. And when you say to me, Give us this living bread, I will answer: I am this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shall not hunger, while he who believes me shall never thirst. You have seen me, lived with me, and beheld my works, yet you believe not that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But to those who do believe — fear not. All those led of the Father shall come to me, and he who comes to me shall in nowise be cast out.

153:2.9 (1711.1) “And now let me declare to you, once and for all time, that I have come down upon the earth,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his is the final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I should not lose one. And this is the will of the Father: That every one who beholds the Son and who believes him shall have eternal life. Only yesterday did I feed you with bread for your bodies; today I offer you the bread of life for your hungry souls. Will you now take the bread of the spirit as you then so willingly ate the bread of this world?”

153:2.10 (1711.2) As Jesus paused for a moment to look over the congregation, one of the teachers

가 일어서서 질문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며,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광야에서 쫓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했다: “네가 바로 이해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를 우리 대부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이 무렵에 회당에서는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으며, 그런 소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했다: “인내심을 갖자; 공정한 게 조사한다면 진리는 결코 손상을 입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며; **아들**은 단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행하는 한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자신에게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도 들을 것이라’고 씌어있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한다. 하늘에서 온 **아들**은 **아버지**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내가 생명을 주는 이 빵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이 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는 모든 자에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빵은, 바로 나의 살아있는 혼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내 계시(啓示)요, 모든 나라에게 주는 내 구원의 선물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회당의 지도자가 회중을 해산시켰으나,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더 많은 질문을 했고, 한편 다른 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논쟁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세 시간 이상 지속됐다. 청중이 마침내 해산된 것은 일곱 시가 한참 지난 뒤였다.

3. 설교 후 모임

예수께서는 이 설교 후 모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혼동돼 있던 제자들로부터 얼마간의 질문이 있었지만, 더 많은 질문은 단지 그를 난처하게 하고 틈을 찌우기 원했던, 트집 잡는, 믿지 않는 자

from Jerusalem (a member of the Sanhedrin) rose up and asked: “Do I understand you to say that you are the bread which comes down from heaven, and that the manna which Moses gave to our fathers in the wilderness did not?” And Jesus answered the Pharisee, “You understood aright.” Then said the Pharisee: “But are you not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the carpenter? Are not your father and mother, as well as your brothers and sisters, well known to many of us? How then is it that you appear here in God’s house and declare that you have come down from heaven?”

153:2.11 (1711.3) By this time there was much murmuring in the synagogue, and such a tumult was threatened that Jesus stood up and said: “Let us be patient; the truth never suffers from honest examination. I am all that you say but more. The Father and I are one; the Son does only that which the Father teaches him, while all those who are given to the Son by the Father, the Son will receive to himself. You have read where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You shall all be taught by God,’ and that ‘Those whom the Father teaches will hear also his Son.’ Every one who yields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indwelling spirit will eventually come to me. Not that any man has seen the Father, but the Father’s spirit does live within man. And the Son who came down from heaven, he has surely seen the Father. And those who truly believe this Son already have eternal life.

153:2.12 (1711.4) “I am this bread of life. Your fathers at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But this bread which comes down from God, if a man eats thereof, he shall never die in spirit. I repeat, I am this living bread, and every soul who attains the realization of this united nature of God and man shall live forever. And this bread of life which I give to all who will receive is my own living and combined nature. The Father in the Son and the Son one with the Father — that is my life-giving revelation to the world and my saving gift to all nations.”

153:2.13 (1711.5)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 ruler of the synagogue dismissed the congregation, but they would not depart. They crowded up around Jesus to ask more questions while others murmured and disputed among themselves. And this state of affairs continued for more than three hours. It was well past seven o’clock before the audience finally dispersed.

3. THE AFTER MEETING

153:3.1 (1712.1) Many were the questions asked Jesus during this after meeting. Some were asked by his perplexed disciples, but more were asked by caviling unbelievers who sought only to

들이 물어본 것들이었다.

방문한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등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쳐 물었다: “당신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답으로 말씀했다: “나는 내 살이 생명의 빵이거나 내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으로 온 내 삶이 바로 하늘의 빵이 증여된 것이라고는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증여됐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현상은, 신성한 음식에 상응하는 체험의 실체를 성립시킨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을 수 없고 내 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내가 영으로 **아버지**와 한 몸인 것처럼, 너희도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생명의 빵이고,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증여됐으며; 신성한 영이 너희의 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진정한 생명의 물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면서 길을 가리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래서 내주하는 하늘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자 **예수**와 사도들을 관찰하던 **예루살렘**의 첩자(諜者)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이 빵을 먹기 전에 정당하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럽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런 행동이 장로들의 유전(遺傳)을 범하는 것임을, 당신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물 잔이나 식기들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선조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전통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나? 계명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다면 너희의 소유물을 부모와 나누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너희는, 불효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도록 허용하는 전통의 율법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장로들의 유전은 책임감 없는 자녀에게 평계를 제공하며, 결국 그런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자신의 전통으로 계명을 피함은 어찌된 일이나?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훈계로 그들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전통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떻게 그 계명을 폐하는지, 너희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자신의 전통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embarrass and entrap him.

153:3.2 (1712.2) One of the visiting Pharisees, mounting a lampstand, shouted out this question: “You tell us that you are the bread of life. How can you give us your flesh to eat or your blood to drink? What avail is your teaching if it cannot be carried out?” And Jesus answered this question, saying: “I did not teach you that my flesh is the bread of life nor that my blood is the water thereof. But I did say that my life in the flesh is a bestowal of the bread of heaven. The fact of the Word of God bestowed in the flesh and the phenomenon of the Son of Man subject to the will of God, constitute a reality of experience which is equivalent to the divine sustenance. You cannot eat my flesh nor can you drink my blood, but you can become one in spirit with me even as I am one in spirit with the Father. You can be nourished by the eternal word of God, which is indeed the bread of life, and which has been bestow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you can be watered in soul by the divine spirit, which is truly the water of life. The Father has sent me into the world to show how he desires to indwell and direct all men; and I have so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as to inspire all men likewise ever to seek to know and do the will of the indwelling heavenly Father.”

153:3.3 (1712.3) Then one of the Jerusalem spies who had been observing Jesus and his apostles, said: “We notice that neither you nor your apostles wash your hands properly before you eat bread. You must well know that such a practice as eating with defiled and unwashed hands is a transgression of the law of the elders. Neither do you properly wash your drinking cups and eating vessels. Why is it that you show such disrespect for the traditions of the fathers and the laws of our elders?” And when Jesus heard him speak, he answered: “Why is it that you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God by the laws of your tradition? The commandment say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directs that you share with them your substance if necessary; but you enact a law of tradition which permits undutiful children to say that the money wherewith the parents might have been assisted has been ‘given to God.’ The law of the elders thus relieves such crafty children of their responsibility, notwithstanding that the children subsequently use all such monies for their own comfort. Why is it that you in this way make void the commandment by your own tradition?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saying: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their doctrines the precepts of men.’

153:3.4 (1712.4) “You can see how it is that you desert the commandment while you hold fast to the tradition of men. Altogether willing are you to reject

말씀을 기꺼이 거부한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감히 율법과 선지자들 위에 자신의 교훈을 올려놓는다.”

그때 예수께서 전체 참석자에게 자기 소견을 말씀했다: “너희는 모두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나 사도들마저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일부 청중에게 불필요하게 걸림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너 또한 깨달음이 없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로 네 관심을 돌려라. 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 선생들 가운데 다수는 눈먼 인도자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러나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동안,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언하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몸에 들어가는 것 또는 눈이나 귀를 통해서 정신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발생하고, 그런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으로만 더럽혀진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사악한 흥분, 도둑질, 간음과 질투, 자존심, 분노, 복수, 욕지거리, 그리고 거짓 증거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음식을 여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바리새인** 위원들은, 신을 모독한 죄명으로, 또는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우롱한 명목으로,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으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가 소위 민족의 구전(口傳)된 율법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 논쟁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아무리 물이 귀하더라도, 이 관습에 얽매인 **유대인**은, 매 식사 전에 예식에서 요구하는 손 씻기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구원은 깨끗한 손보다 깨끗한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나 그런 신념들은, 일단 사람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사도 베드로**는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에 관한 이런 많은 전통으로 인한 두려움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단지 굉장하고 생생한 어떤 꿈을 꾸 후에야 드디어 최종적으로 놓임 받게 됐다. 이 **유대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매춘부와 거래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럽게 여겼고, 양쪽 다 추방당할 만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음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the word of God while you maintain your own traditions. And in many other ways do you dare to set up your own teachings above the law and the prophets.”

153:3.5 (1712.5) Jesus then directed his remarks to all present. He said: “But hearken to me, all of you. It is not that which enters into the mouth that spiritually defiles the man, but rather that which proceeds out of the mouth and from the heart.” But even the apostles failed fully to grasp the meaning of his words, for Simon Peter also asked him: “Lest some of your hearers be unnecessarily offended, would you explain to us the meaning of these words?” And then said Jesus to Peter: “Are you also hard of understanding? Know you not that every plant which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shall be rooted up? Turn now your attention to those who would know the truth. You cannot compel men to love the truth. Many of these teachers are blind guides. And you know that, if the blind lead the blind, both shall fall into the pit. But hearken while I tell you the truth concerning those things which morally defile and spiritually contaminate men. I declare it is not that which enters the body by the mouth or gains access to the mind through the eyes and ears, that defiles the man. Man is only defiled by that evil which may originate within the heart, and which finds expression in the words and deeds of such unholy persons. Do you not know it is from the heart that there come forth evil thoughts, wicked projects of murder, theft, and adulteries, together with jealousy, pride, anger, revenge, railings, and false witness? And it is just such things that defile men, and not that they eat bread with ceremonially unclean hands.”

153:3.6 (1713.1) The Pharisaic commissioners of the Jerusalem Sanhedrin were now almost convinced that Jesus must be apprehended on a charge of blasphemy or on one of flouting the sacred law of the Jews; wherefore their efforts to involve him in the discussion of, and possible attack upon, some of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or so-called oral laws of the nation. No matter how scarce water might be, these traditionally enslaved Jews would never fail to go through with the required ceremonial washing of the hands before every meal. It was their belief that “it is better to die than to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the elders.” The spies asked this question because it had been reported that Jesus had said, “Salvation is a matter of clean hearts rather than of clean hands.” But such beliefs, when they once become a part of one’s religion, are hard to get away from. Even many years after this day the Apostle Peter was still held in the bondage of fear to many of these traditions about things clean and unclean, only being finally delivered by experiencing an extraordinary and vivid dream. All of this can the better be understood when it is recalled that these Jews looked upon eating with unwashed hands in

따라서 **주님**은, 구전된 율법--곧 장로들의 전통--이 대표하는 규정과 규칙들로 이뤄진 전체 율법학자 제도, 즉 심지어 **성서**의 교훈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지고, **유대인**을 더 많이 속박하던 그 모든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 토의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공개적인 불화관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낌 없이 말씀했다.

4. 회당에서 마지막 말씀

이 설교 후 모임에서 토론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하나가, 다루기 힘들고 반항하는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한 젊은이를 **예수** 앞에 데려 왔다. 그가 이 미친 아이를 **예수** 앞으로 이끌면서 말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젊은이를 바라봤을 때, 연민으로 감동되어 말씀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네 충실한 동료 가운데 하나에게 명령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됐다. 이것이 **예수**께서 진정 처음으로, “악한 영”을 인간에게서 내쫓은 경우였다. 이전의 모든 경우는 단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된 것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정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경우였는데, 그런 일이 그 시절에, 그리고 **오순절** 직전까지 때때로 일어났으며, **오순절**에, **주님**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어졌고, 이런 소수의 천상{天上}의 반역자들이 어떤 불안정한 유형의 인간을 이용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경탄하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마귀들과 한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비난했으며; 그가 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한 언어는, 그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과 지도자들이, 그가 마귀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을 행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바리새인**이 말했다: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는 **사탄**의 동업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곧 망하는 법이다. 성{城}이 연합돼 있지 않으면서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자신을 대항해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

the same light as commerce with a harlot, and both were equally punishable by excommunication.

153:3.7 (1713.2) Thus did the Master elect to discuss and expose the folly of the whole rabbinic system of rules and regulations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oral law —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all of which were regarded as more sacred and more binding upon the Jews than even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And Jesus spoke out with less reserve because he knew the hour had come when he could do nothing more to prevent an open rupture of relations with these religious leaders.

4. LAST WORDS IN THE SYNAGOGUE

153:4.1 (1713.3) In the midst of the discussions of this after meeting, one of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brought to Jesus a distraught youth who was possessed of an unruly and rebellious spirit. Leading this demented lad up to Jesus, he said: “What can you do for such affliction as this? Can you cast out devils?” And when the Master looked upon the youth,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and, beckoning for the lad to come to him, took him by the hand and said: “You know who I am; come out of him; and I charge one of your loyal fellows to see that you do not return.” And immediately the lad was normal and in his right mind. And this is the first case where Jesus really cast an “evil spirit” out of a human being. All of the previous cases were only supposed possession of the devil; but this was a genuine case of demoniac possession, even such as sometimes occurred in those days and right up to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Master’s spirit was poured out upon all flesh, making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se few celestial rebels to take such advantage of certain unstable types of human beings.

153:4.2 (1714.1) When the people marveled, one of the Pharisees stood up and charged that Jesus could do these things because he was in league with devils; that he admitted in the language which he employed in casting out this devil that they were known to each other; and he went on to state that the religious teachers and leaders at Jerusalem had decided that Jesus did all his so-called miracles by the power of Beelzebub, the prince of devils. Said the Pharisee: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man; he is in partnership with Satan.”

153:4.3 (1714.2) Then said Jesu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A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f a house be divided against itself, it is soon brought to desolation. Can a city withstand a siege if it is not united? If Satan cast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shall his kingdom stand? But you should know that no one

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치 못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너희 자녀는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이 너희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편견으로 눈멀고 두려움과 자존심으로 잘못 인도되지 않았다면, 너희는 마귀들보다 더 큰 자가 너희 앞에 서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자임을 선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너희가 다 알면서도 의도적인 악의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들의 일이라고 고의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엄숙히 경고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신성모독조차 용서받지만, 고의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속적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神)의 용서하심을 영원히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갈림길에 서있게 됐으며; 너희는 **아버지** 뜻과 스스로 선택한 어두움의 길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너희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무도 좋게 하고 실과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오염시키고 그것의 실과도 오염시키든지 해야 한다. 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내가 선언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더러는 독사 같은데, 이미 악을 택했으니, 어떻게 선한 실과를 맺겠느냐? 결국,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을 너희 입으로 말한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권위와 가르칠 권리를 인정하는 데 우리도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했다: “신앙이 없고 기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이미 가진 것과,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서 떠날 때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그것들 외에는, 어떤 표적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마쳤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도들이 그를 회당에서 모시고 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벳새다**의 집을 향해 그와 함께 길을 갔다. 그들은 모두 놀랐고, **주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어,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는 데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can enter into the house of a strong man and despoil his goods except he first overpower and bind that strong man. And so, if I by the power of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shall they be your judges. But if I, by the spirit of God, cast out devils, then has the kingdom of God truly come upon you. If you were not blinded by prejudice and misled by fear and pride, you would easily perceive that one who is greater than devils stands in your midst. You compel me to declare that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while he who gathers not with me scatters abroad. Let me utter a solemn warning to you who would presume, with your eyes open and with premeditated malice, knowingly to ascribe the works of God to the doings of devils! Verily, verily, I say to you, all your sins shall be forgiven, even all of your blasphemies, but whosoever shall blaspheme against God with deliberation and wicked intention shall never obtain forgiveness. Since such persistent workers of iniquity will never seek nor receive forgiveness, they are guilty of the sin of eternally rejecting divine forgiveness.

153:4.4 (1714.3) “Many of you have this day come to the parting of the ways; you have come to a beginning of the making of the inevitable choice between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elf-chosen ways of darkness. And as you now choose, so shall you eventually be. You must either make the tree good and its fruit good, or else will the tree become corrupt and its fruit corrupt. I declare that in my Father’s eternal kingdom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s. But some of you who are as vipers, how can you, having already chosen evil, bring forth good fruits? After all, out of the abundance of the evil in your hearts your mouths speak.”

153:4.5 (1714.4) Then stood up another Pharisee, who said: “Teacher, we would have you give us a predetermined sign which we will agree upon as establishing your authority and right to teach. Will you agree to such an arrangement?”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his faithless and sign-seeking generation seeks a token, but no sign shall be given you other than that which you already have, and that which you shall see when the Son of Man departs from among you.”

153:4.6 (1714.5)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is apostles surrounded him and led him from the synagogue. In silence they journeyed home with him to Bethsaida. They were all amazed and somewhat terror-stricken by the sudden change in the Master’s teaching tactics. They were wholly unaccustomed to seeing him perform in such a militant manner.

5. 토요일 밤

5. THE SATURDAY EVENING

예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서 놓았고, 그들의 기대를 꺾어 오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실망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절망과 더불어 그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까지 겹쳤다. 민중의 갑작스럽고 완전한 배척에, 그들은 모두 매우 놀랐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이 보여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담함과 확고한 결정에, 그들은 어느 정도 겁이 났고 당황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갑작스런 전술 변화에 매우 어리둥절했다. 정상 환경에서라면, 그들은 좀 더 강경한 이 태도에 환영을 표명했겠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외에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식사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다락방에 혼자 올라가 있었다. 거의 자정 무렵에, 전도자들의 대표인 **요압**이 돌아와서, 동료 가운데 약 3분의 1이 떠났다고 그에게 보고했다. 그 밤 내내, 충성스런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 대한 태도의 돌변이 **가버나움**에 널리 퍼졌다고 보고한 후에 돌아갔다.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런 불신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재빨리 행동을 개시했고, **예수**와 그의 교훈을 멀리하는 운동을 조장하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시험 기간에 열두 명의 여자 대원은 **베드로**의 집에서 회의 중이었다. 그들은 매우 당황했으나,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내려와, 30명가량 되는 열두 사도 및 그 동역자들 가운데로 온 때는 자정이 좀 지난 후였다. 그가 말씀했다: “천국의 이런 변동이 너희를 걱정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모든 훈련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 말을 듣고 흔들릴만한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미지근한 무리들과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늘 나라의 영적 교훈이 새로운 영광으로 빛나며, 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슬퍼한단 말이나? 너희가 이 시험도 견디기 어려워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어찌하려느냐? 내가 이 세상으로 오기 전의 그곳으로 올라갈 때를 위해, 너희가 언제, 어떻게, 너희 자신을 준비할 것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소생하는 것은 영이며; 육신과 그것에 속한 것은 모두 무익함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요즈음 명백하게 말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내 제자 가운데 다수가 등을 돌렸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153:5.1 (1715.1) Time and again had Jesus dashed to pieces the hopes of his apostles, repeatedly had he crushed their fondest expectations, but no time of disappointment or season of sorrow had ever equaled that which now overtook them. And, too, there was now admixed with their depression a real fear for their safety. They were all surprisingly startled by the suddenness and completeness of the desertion of the populace. They were also somewhat frightened and disconcerted by the unexpected boldness and assertive determination exhibited by the Pharisee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But most of all they were bewildered by Jesus' sudden change of tactics.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they would have welcomed the appearance of this more militant attitude, but coming as it did, along with so much that was unexpected, it startled them.

153:5.2 (1715.2) And now, on top of all of these worries, when they reached home, Jesus refused to eat. For hours he isolated himself in one of the upper rooms. It was almost midnight when Joab, the leader of the evangelists, returned and reported that about one third of his associates had deserted the cause. All through the evening loyal disciples had come and gone, reporting that the revulsion of feeling toward the Master was general in Capernaum. The leaders from Jerusalem were not slow to feed this feeling of disaffection and in every way possible to seek to promote the movement away from Jesus and his teachings. During these trying hours the twelve women were in session over at Peter's house. They were tremendously upset, but none of them deserted.

153:5.3 (1715.3) It was a little after midnight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upper chamber and stood among the twelve and their associates, numbering about thirty in all. He said: "I recognize that this sifting of the kingdom distresses you, but it is unavoidable. Still, after all the training you have had, was there any good reason why you should stumble at my words? Why is it that you are filled with fear and consternation when you see the kingdom being divested of these lukewarm multitudes and these halfhearted disciples? Why do you grieve when the new day is dawning for the shining forth in new glory of the spiritual teach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If you find it difficult to endure this test, what, then, will you do when the Son of Man must return to the Father? When and how will you prepare yourselves for the time when I ascend to the place whence I came to this world?

153:5.4 (1715.4) "My beloved, you must remember that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s; the flesh and all that pertains thereto is of little profit.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Be of good cheer! I have not deserted you. Many shall be offended by the plain speaking of these days. Already you have heard that many of my disciples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내가 너희 열두 사람을 택해서 천국 대사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 각자 자기 신앙을 살펴봐라, 너희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슬프고 당황했지만, 절대로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고, 항상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음을 알기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모두 그의 충성 서약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했다: “가서 쉬거라. 바쁜 시절이 우리에게 왔으며; 적극적으로 일할 날들이 목전에 와 있다.”

have turned back; they walk no more with me. From the beginning I knew that these halfhearted believers would fall out by the way. Did I not choose you twelve men and set you apart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now at such a time as this would you also desert? Let each of you look to his own faith, for one of you stands in grave danger.”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Simon Peter said: “Yes, Lord, we are sad and perplexed, but we will never forsake you. You have taught us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believed in you and followed with you all this time. We will not turn back, for we know that you are sent by God.” And as Peter ceased speaking, they all with one accord nodded their approval of his pledge of loyalty.

^{153:5.5 (1716.1)} Then said Jesus: “Go to your rest, for busy times are upon us; active days are just ahead.”

제 154편.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날들

⇨ 153

유랜시아 책

15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54편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날들

섹션

소개

1. 한 주 동안의 협의
2. 한 주간의 휴식
3. 두 번째 디베라 회의
4. 토요일 밤 가버나움에서
5. 파란 많은 일요일 아침
6.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7. 황급한 도피

PAPER 154

LAST DAY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A Week of Counsel
2. A Week of Rest
3. The Second Tiberias Conference
4. Saturday Night in Capernaum
5. The Eventful Sunday Morning
6. Jesus' Family Arrives
7. The Hasty Flight

소개

4월 30일, 중대한 토요일 밤에, 풀이 죽고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디베라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특별 위원 집단이 회의를 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선동해서 분쟁을 피하며, 반역까지 하리라고 그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헤롯은 그를 정치범으로 체포하기를 거절했다. 호수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했던 일과,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헤롯에게 그 충고자들이 제공했었다.

헤롯의 정식 가족 가운데 하나인 추자의 아내가 여자 봉사단에 속했는데, 추자는 헤롯에게, 예수께서는 이 세상 통치와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를 전혀 원치 않는다는 것과; 단지 신자들의 영적 형제관계, 즉 그가 하늘 나라라고 부르는 형제관계의 설립에만 관심이 있음을 알려줬었다. 헤롯은 추자의 보고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에 간섭하기를 거절했다. 또한 이때 예수에 대한 입장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 미신적 두려

INTRODUCTION

154:0.1 (1717.1) ON THE eventful Saturday night of April 30, as Jesus was speaking words of comfort and courage to his downcast and bewildered disciples, at Tiberias a council was being held between Herod Antipas and a group of special commissioners representing the Jerusalem Sanhedrin. These scribes and Pharisees urged Herod to arrest Jesus; they did their best to convince him that Jesus was stirring up the populace to dissension and even to rebellion. But Herod refused to take action against him as a political offender. Herod's advisers had correctly reported the episode across the lake when the people sought to proclaim Jesus king and how he rejected the proposal.

154:0.2 (1717.2) One of Herod's official family, Chuza, whose wife belonged to the women's ministering corps, had informed him that Jesus did not propose to meddle with the affairs of earthly rule; that he was only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his believers, which brotherhood he called the kingdom of heaven. Herod had confidence in Chuza's reports, so much so that he refused to interfere with Jesus' activities. Herod was also influenced at this time,

움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헤롯**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 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종교를 버린 **유대인**이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에 양심이 찢렸으므로, **예수**에 대항하는 이 음모에 끼여 들기를 꺼렸다. 그는 **예수**가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경우의 환자를 알았으며, **예수**를 선지자 또는 비교적 해롭지 않은 종교 광신자로 간주했다.

그가 배신자를 보호한다고 **가이사**에게 보고 하겠다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협박하자, **헤롯**은 회의장에서 그들을 당장 쫓아내라고 명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은 한 주 유보됐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임박한 흠여집에 대비하도록 추종자들을 준비시켰다.

1. 한 주 동안의 협의

5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집에서 추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단지 시험에 통과한, 믿을만한 제자들만 이 협의에 참석하도록 허락했다. 이때 **바리새인**의 반대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도덕적 용기를 갖고, 자신이 **예수**께 속해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제자는 겨우 100여명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집단과, 아침, 오후, 및 저녁에 회의를 열었다. 해변에는 질문하러 온 소규모 집단의 사람이 오후마다 모였으며, 거기서 소수의 전도자나 사도가 그들을 가르쳤다. 이 집단은 겨우 50명 남짓했다.

같은 주 금요일에 **가버나움** 회당 관리인들이, **예수**와 추종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이 처사는 **예루살렘 바리새인**의 음모로 이뤄졌다. **아이로**는 회당장직을 그만두고, 드러내놓고 **예수**와 합세했다.

마지막 회합이 5월 7일 **안식일** 오후에 해변에서 있었다. 그때 모인 15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 토요일 밤은, **예수**와 그의 교훈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의 물결이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던 때였다. 그때 이후로는 변함없고 느렸지만, 호의적 경향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믿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새로운 추종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보다 더 튼튼한, 영적 신앙과 진정한 종교 체험에 더욱 기초했다. **주님**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물질적 개념과, **예수**께서 가르쳤던 좀 더 이상적이고 영적인 개념 사이에서, 좀 더 혼합되고 타협적이던 과도기 단계가 이때 분명히 끝났다. 이때부터는, 더욱 공개적인 천국 복음 선포가, 더 큰 규모로, 그리고 광범한 영적 영향력 속에서 이뤄졌다.

in his attitude toward Jesus, by his superstitious fear of John the Baptist. Herod was one of those apostate Jews who, while he believed nothing, feared everything. He had a bad conscience for having put John to death, and he did not want to become entangled in these intrigues against Jesus. He knew of many cases of sickness which had been apparently healed by Jesus, and he regarded him as either a prophet or a relatively harmless religious fanatic.

154:0.3 (1717.3) When the Jews threatened to report to Caesar that he was shielding a traitorous subject, Herod ordered them out of his council chamber. Thus matters rested for one week, during which time Jesus prepared his followers for the impending dispersion.

1. A WEEK OF COUNSEL

154:1.1 (1717.4) From May 1 to May 7 Jesus held intimate counsel with his followers at the Zebedee house. Only the tried and trusted disciples were admitted to these conferences. At this time there were only about one hundred disciples who had the moral courage to brave the opposition of the Pharisees and openly declare their adherence to Jesus. With this group he held sessions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Small companies of inquirers assembled each afternoon by the seaside, where some of the evangelists or apostles discoursed to them. These groups seldom numbered more than fifty.

154:1.2 (1717.5) On Friday of this week official action was taken by the rulers of the Capernaum synagogue closing the house of God to Jesus and all his followers. This action was taken at the instigation of the Jerusalem Pharisees. Jairus resigned as chief ruler and openly aligned himself with Jesus.

154:1.3 (1718.1) The last of the seaside meetings was held on Sabbath afternoon, May 7. Jesus talked to less than one hundred and fifty who had assembled at that time. This Saturday night marked the time of the lowest ebb in the tide of popular regard for Jesus and his teachings. From then on there was a steady, slow, but more healthful and dependable growth in favorable sentiment; a new following was built up which was better grounded in spiritual faith and true religious experience. The more or less composite and compromising transition stage between the materialistic concepts of the kingdom held by the Master's followers and those more idealistic and spiritual concepts taught by Jesus, had now definitely ended. From now on there was a more open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its larger scope and in its far-flung spiritual implications.

2. 한 주간의 휴식

서기 29년 5월 8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은 **예수**와 추종자들에게는 **팔레스틴**의 어떤 회당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이 새롭게 전례 없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각 회당은 독립된 경배자 모임으로 존재하고 작동했으며, 자체 운영자 회의의 통치와 지시 아래 있었다. 단지 **예루살렘** 회당들만 **산헤드린** 권위에 종속돼 있었다. **산헤드린**의 이런 즉석 조치가 있게 되자, **산헤드린** 위원 중에서 다섯 명이 곧 사직했다. 이 명령을 전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100명의 심부름꾼이 즉각 파견됐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헤브론** 회당을 제외한 **팔레스틴**의 모든 회당이 **산헤드린**의 이 성명서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헤브론** 회당의 관리들은, 자기네 집회에 대해 **산헤드린**이 그렇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예루살렘**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한 것은, **예수**의 주장에 대한 호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회중이 자치(自治)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의거했다. **헤브론** 회당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불에 타서 파괴됐다.

바로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한 주간의 휴식을 선언했고, 모든 제자에게 그들의 고통스런 혼을 쉬게 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집이나 친구들에게 가라고 재촉했다. 그가 말씀했다: “너희가 천국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고기 잡으러 여러 곳을 다니도록 해라.”

이 한 주 동안의 휴식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해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족과 집단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세베대의** 아들 **다윗**과 여러 번 고기 잡으러 나갔고,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다.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두 세 명의 심부름꾼이 가까이에서 항상 대기했는데, 그들은 **예수**의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 우두머리로부터 확실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휴식하는 이 주간에는 대중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이 주간에 **나다니엘**과 **야고보 세베대**가 상당히 심한 병을 앓았다. 그들은 고통스런 소화 불량으로 3일 동안 밤낮으로 심하게 괴로워했다. 셋째 날 밤에는 **예수**께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쉬도록 보내고, 고통당하는 사도들을 직접 돌봤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당장 치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런 평상시의 어려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인간 자녀의 병을 해결하려고, **아들** 또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육신 속에서 획기적 생애를 지내는 내내,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 가족이나 측근(側近) 추종자들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보살핌도 베풀지 않았다.

2. A WEEK OF REST

154:2.1 (1718.2) Sunday, May 8, A.D. 29, at Jerusalem, the Sanhedrin passed a decree closing all the synagogues of Palestine to Jesus and his followers. This was a new and unprecedented usurpation of authority by the Jerusalem Sanhedrin. Theretofore each synagogue had existed and functioned as an independent congregation of worshipers and was under the rule and direction of its own board of governors. Only the synagogues of Jerusalem had been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anhedrin. This summary action of the Sanhedrin was followed by the resignation of five of its members. One hundred messenger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convey and enforce this decree. Within the short space of two weeks every synagogue in Palestine had bowed to this manifesto of the Sanhedrin except the synagogue at Hebron. The rulers of the Hebron synagogue refused to acknowledge the right of the Sanhedrin to exercise such jurisdiction over their assembly. This refusal to accede to the Jerusalem decree was based on their contention of congregational autonomy rather than on sympathy with Jesus' cause. Shortly thereafter the Hebron synagogue was destroyed by fire.

154:2.2 (1718.3) This same Sunday morning, Jesus declared a week's holiday, urging all of his disciples to return to their homes or friends to rest their troubled souls and speak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ir loved ones. He said: "Go to your several places to play or fish while you pray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154:2.3 (1718.4) This week of rest enabled Jesus to visit many families and groups about the seaside. He also went fishing with David Zebedee on several occasions, and while he went about alone much of the time, there always lurked near by two or three of David's most trusted messengers, who had no uncertain orders from their chief respecting the safeguarding of Jesus. There was no public teaching of any sort during this week of rest.

154:2.4 (1718.5) This was the week that Nathaniel and James Zebedee suffered from more than a slight illness. For three days and nights they were acutely afflicted with a painful digestive disturbance. On the third night Jesus sent Salome, James's mother, to her rest, while he ministered to his suffering apostles. Of course Jesus could have instantly healed these two men, but that is not the method of either the Son or the Father in dealing with these commonplace difficulties and afflictions of the children of men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Never once, throughout all of his eventful life in the flesh, did Jesus engage in any sort of supernatural

필사 피조물은, 그 진화하는 혼{魂}의 성장과 발달, 즉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도록 제공된 체험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우주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행성의 장애물에 부딪쳐야 한다. 인간 혼이 영성화{靈性化}되는 것은, 광범한 실체의 우주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는 체험을 직접 겪기를 요구한다. 동물적인 본성과 비교적 낮은 형태의 의지 피조물은, 순탄한 환경 아래서는 순조롭게 진보하지 못한다. 불확실한 환경은, 힘든 일이 주는 자극과 더불어, 필사자 진보의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그리고 영{靈} 운명의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대단히 기여하는, 정신과 혼과 영의 그런 활동을 산출하도록 협력한다.

3. 두 번째 디베라 회의

5월 16일에, **예루살렘** 권력자들과 **헤롯 안티파스** 사이의 두 번째 회담이 **디베라**에서 소집됐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사실상 거의 모든 회당이 **예수**의 교훈을 금지시켰다는 보고를 **헤롯**에게 할 수 있었다.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하도록 새롭게 시도했지만, **헤롯**은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5월 18일에, **헤롯**은 **유대지방**의 **로마** 통치자가 그런 계획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산헤드린**의 권위로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종교적 죄로 그를 문책하도록 허락하는 계획에 찬성했다. 그러는 동안 **예수**의 적들은, **헤롯**이 **예수**에게 적의를 품었고, 그것은 그의 교훈을 믿는 모든 자를 처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소문을 **갈릴리** 전역에 무지런히 퍼뜨렸다.

5월 21일 토요일 밤에,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와서, **유대** 국가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게 하려는, **헤롯**과 **바리새인** 사이의 협정에, **예루살렘** 정부 당국으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전갈이 **디베라**에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자정 직전에,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 아래 있는 **예수**를 체포하여, 그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 관원들에게 위임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헤롯**이 이 허락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방면에서 들어온 많은 압력이 있었으며, 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가증스런 적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았다.

4. 토요일 밤 가버나움에서

ministration to any member of his earth family or in behalf of any one of his immediate followers.

154:2.5 (1719.1) Universe difficulties must be met and planetary obstacles must be encountered as a part of the experience training provided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the progressive perfection, of the evolving souls of mortal creatures. The spiritualization of the human soul requires intimate experience with the educational solving of a wide range of real universe problems. The animal nature and the lower forms of will creatures do not progress favorably in environmental ease. Problematic situations, coupled with exertion stimuli, conspire to produce those activities of mind, soul, and spirit which contribute mightily to the achievement of worthy goals of mortal progression and to the attainment of higher levels of spirit destiny.

3. THE SECOND TIBERIAS CONFERENCE

154:3.1 (1719.2) On May 16 the second conference at Tiberias between the authorities at Jerusalem and Herod Antipas was convened. Both the religious and the political leaders from Jerusalem were in attendance. The Jewish leaders were able to report to Herod that practically all the synagogues in both Galilee and Judea were closed to Jesus' teachings. A new effort was made to have Herod place Jesus under arrest, but he refused to do their bidding. On May 18, however, Herod did agree to the plan of permitting the Sanhedrin authorities to seize Jesus and carry him to Jerusalem to be tried on religious charges, provided the Roman ruler of Judea concurred in such an arrangement. Meanwhile, Jesus' enemies were industriously spreading the rumor throughout Galilee that Herod had become hostile to Jesus, and that he meant to exterminate all who believed in his teachings.

154:3.2 (1719.3) On Saturday night, May 21, word reached Tiberias that the civil authorities at Jerusalem had no objection to the agreement between Herod and the Pharisees that Jesus be seized and carried to Jerusalem for trial before the Sanhedrin on charges of flouting the sacred laws of the Jewish nation. Accordingly, just before midnight of this day, Herod signed the decree which authorized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to seize Jesus within Herod's domains and forcibly to carry him to Jerusalem for trial. Strong pressure from many sides was brought to bear upon Herod before he consented to grant this permission, and he well knew that Jesus could not expect a fair trial before his bitter enemies at Jerusalem.

4. SATURDAY NIGHT IN CAPERNAUM

바로 이날 토요일 밤에, **가버나움**에서는 50명의 지도자급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중대한 질문을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까?” 그들은 자정이 지나기까지 이야기하고 논쟁했으나, 합의할 볼 아무런 공통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쩌면 **메시아**, 아니면 적어도 신성한 사람, 또는 아마 선지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약간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모임은 **예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따라서 거의 똑 같은 숫자의 네 집단으로 갈라졌다:

1. 그는 망상적이며 아무 해가 없는 광신자라는 견해.
2. 그는 반역을 선동할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교활한 선동가라는 견해.
3. 그는 마귀들과 연관돼 있다는, 어쩌면 그가 마귀들의 두목일지도 모른다는 견해.
4. 그는 정신 나간 자, 즉 정신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미친 자라는 견해.

일반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교리를 **예수**가 전파하고 있음에 대해 많은 의논이 있었으며; 적들은 그의 교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차후 세대 사람도 같은 말을 해 왔다. 심지어 본 계시를 받은, 더 계몽된 시대에도, 충명하고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이, 현대 문명은 **예수**의 교훈 위에 세워질 수 없었다고 계속 주장한다--그리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런 의심하는 모든 자는, 훨씬 나은 문명이 그의 교훈 위에 세워질 수도 있었고, 또 언젠가 세워질 것이라는 점을 잊었다.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따라가려는, 열의 없는 시도들이 종종 있기는 했어도, 이 세상은 **예수**의 교훈을 대규모로 실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5. 파란 많은 일요일 아침

5월 22일은 **예수**의 생애에서 파란 많은 날이었다. 이 일요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의 심부름꾼 하나가 **디베라**에서 황급히 도착하여,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원들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하도록 이미 허락했던지, 아니면 허락하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급박한 위험을 알리는 이 소식을 받음으로 인해, **다윗 세베대**는 심부름꾼들을 깨우고 지방에 있는 모든 제자 집단에게 보내서, 그날 아침 일곱 시에 비상 회의로 모이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 (**예수**의 동생) **유다**의 처제는 이 급박한 소식을 듣자, 가까이 살던 **예수**의 가족 모두에게로 서둘러 가서, 즉시 **세베대**의 집으로 모이라는 전갈을 전했다. 그리고 이런 급한 소집에 반응해서,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룻**이 곧 한자리에 모였다.

154:4.1 (1719.4) On this same Saturday night, in Capernaum a group of fifty leading citizens met at the synagogue to discuss the momentous question: “What shall we do with Jesus?” They talked and debated until after midnight, but they could not find any common ground for agreement. Aside from a few persons who inclined to the belief that Jesus might be the Messiah, at least a holy man, or perhaps a prophet, the meeting was divided into four nearly equal groups who held, respectively, the following views of Jesus:

- 154:4.2 (1719.5) 1. That he was a deluded and harmless religious fanatic.
- 154:4.3 (1719.6) 2. That he was a dangerous and designing agitator who might stir up rebellion.
- 154:4.4 (1720.1) 3. That he was in league with devils, that he might even be a prince of devils.
- 154:4.5 (1720.2) 4. That he was beside himself, that he was mad, mentally unbalanced.

154:4.6 (1720.3) There was much talk about Jesus' preaching doctrines which were upsetting for the common people; his enemies maintained that his teachings were impractical, that everything would go to pieces if everybody made an honest effort to live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And the men of many subsequent generations have said the same things. Many intelligent and well-meaning men, even in the more enlightened age of these revelations, maintain that modern civilization could not have been built upon the teachings of Jesus — and they are partially right. But all such doubters forget that a much better civilization could have been built upon his teachings, and sometime will be. This world has never seriously tried to carry out the teachings of Jesus on a large scale, notwithstanding that halfhearted attempts have often been made to follow the doctrines of so-called Christianity.

5. THE EVENTFUL SUNDAY MORNING

154:5.1 (1720.4) May 22 was an eventful day in the life of Jesus. On this Sunday morning, before daybreak, one of David's messengers arrived in great haste from Tiberias, bringing the word that Herod had authorized, or was about to authorize, the arrest of Jesus by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The receipt of the news of this impending danger caused David Zebedee to arouse his messengers and send them out to all the local groups of disciples, summoning them for an emergency council at seven o'clock that morning. When the sister-in-law of Jude (Jesus' brother) heard this alarming report, she hastened word to all of Jesus' family who dwelt near by, summoning them forthwith to assemble at Zebedee's house. And in response to this hasty

이 이른 아침 회의에서, **예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작별 지침을 내렸는데; 즉, 그들이 곧 **가버나움**에서 해산될 것임을 잘 알았으므로, 잠시 동안의 작별을 그들에게 명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며, 결과에 관계없이 천국 일을 수행하라고 모두에게 지시했다. 전도자들은 소집될 때까지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대로 일하도록 지시 받았다. 그는 전도자 가운데 열두 명을 선택해서 따라오게 했으며; 열두 사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열두 여자 대원에게는, 오라고 부를 때까지, **세베대**와 **베드로**의 집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전국적인 심부름꾼 봉사를 계속하도록 동의했고, **다윗**이 **주님**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가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용졸한 자가 **주님**을 체포하게 하지 마시고, 심부름꾼들이 당신을 따라갈 것임을 의심치 마십시오. 내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은 다른 지역의 천국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봉사는 계속될 것인데,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임자, 심지어 세 번째도 이미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도, 설교자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꼭 이 이일을 하고 싶어서 하며,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날 아침 일곱 시 반쯤에, 말씀을 듣기 위해 방안에 가득 모여든, 거의 100명의 신자에게 작별의 인사말을 시작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순간이었으나, **예수**께서는 매우 유쾌해 보였으며; 다시 한 번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주중에 있었던 심각한 사라졌고, 신앙, 소망, 및 용기의 말로 그들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

6.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이 일요일 아침 여덟 시쯤, **예수**의 이 세상 가족 다섯 명이 **유다**의 처제의 급한 전갈을 받고 거기에 도착했다. 그의 육신의 가족 중에서 **룻**만이,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을 전심으로 계속 믿었다. **유다**와 **아고보**, 그리고 **요셉**까지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좀 더 나은 판단과 진정한 영적 성향을 이루지 못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모성애와 가족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마리아**는 의심으로 많이 시달렸음에도,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브리엘**의 방문을 아주 잊을 수는 결코 없었다. **바리새인**은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고 **마리아**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더 이상

call, presently there were assembled Mary, James, Joseph, Jude, and Ruth.

154:5.2 (1720.5) At this early morning meeting Jesus imparted his farewell instructions to the assembled disciples; that is, he bade them farewell for the time being, knowing well that they would soon be dispersed from Capernaum. He directed them all to seek God for guidance and to carry on the work of the kingdom regardless of consequences. The evangelists were to labor as they saw fit until such time as they might be called. He selected twelve of the evangelists to accompany him; the twelve apostles he directed to remain with him no matter what happened. The twelve women he instructed to remain at the Zebedee house and at Peter's house until he should send for them.

154:5.3 (1720.6) Jesus consented to David Zebedee's continuing his countrywide messenger service, and in bidding the Master farewell presently, David said: "Go forth to your work, Master. Don't let the bigots catch you, and never doubt that the messengers will follow after you. My men will never lose contact with you, and through them you shall know of the kingdom in other parts, and by them we will all know about you. Nothing that might happen to me will interfere with this service, for I have appointed first and second leaders, even a third. I am neither a teacher nor a preacher, but it is in my heart to do this, and none can stop me."

154:5.4 (1720.7) About 7:30 this morning Jesus began his parting address to almost one hundred believers who had crowded indoors to hear him. This was a solemn occasion for all present, but Jesus seemed unusually cheerful; he was once more like his normal self. The seriousness of weeks had gone, and he inspired all of them with his words of faith, hope, and courage.

6. JESUS' FAMILY ARRIVES

154:6.1 (1721.1) It was about eight o'clock on this Sunday morning when five members of Jesus' earth family arrived on the scene in response to the urgent summons of Jude's sister-in-law. Of all his family in the flesh, only one, Ruth, believed wholeheartedly and continuously in the divinity of his mission on earth. Jude and James, and even Joseph, still retained much of their faith in Jesus, but they had permitted pride to interfere with their better judgment and real spiritual inclinations. Mary was likewise torn between love and fear, between mother love and family pride. Though she was harassed by doubts, she could never quite forget the visit of Gabriel ere Jesus was born. The Pharisees had been laboring to persuade Mary that Jesus was beside himself, demented. They

공중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결과로 그의 건강이 곧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도 불명예와 수치를 불러올 뿐이라고 **마리아**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들 다섯 명은 모두, **유다**의 처제의 말을 듣자, **세베대**의 집을 향해 바로 떠났다. 그들은 전날 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바리새인**과 만났었다. 그들은 밤 길도록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야기했고, **예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그가 한동안 이상하게 행동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됐다. 한편 **룻**은 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항상 가족에게 공정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설득시키는 계획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세베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를 설득하기로 동의했는데, **마리아**가: “내 아들이 집에 와서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하러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신변의 안전이 걱정됐다. **예수**께서 대중의 눈에 평판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한, 그의 가족은 문제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뒀었지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갑자기 그에게 등을 돌렸으므로, 그들은 당혹한 입장에서, 예상되는 불명예에 대한 압력을 예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를 외딴곳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기로 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키고, 또한 가족에게는 수치를 주게 되는 어리석은 전도를 그만두기만 한다면, 그가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히 대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는--곧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을 것이라는-- 점을 그에게 확신시키리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룻**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빠에게, 내가 오빠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오빠가 이 사악한 **바리새인**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기보다 차라리 그 전에 죽음을 택하기 바란다고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이 **예수**를 설득하는 동안, **룻**을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의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곳은 사람들로 인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후문(後門) 쪽 현관에 자리 잡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귓속말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한 사람씩 말을 전하게 했으며,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전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고, 당신과 이야기하기를 몹시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이 이별의 메시지가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의 인사말이 체포자들의 도착으

urged her to go with her sons and seek to dissuade him from further efforts at public teaching. They assured Mary that soon Jesus' health would break, and that only dishonor and disgrace could come upon the entire family as a result of allowing him to go on. And so, when the word came from Jude's sister-in-law, all five of them started at once for Zebedee's house, having been together at Mary's home, where they had met with the Pharisees the evening before. They had talked with the Jerusalem leaders long into the night, and all were more or less convinced that Jesus was acting strangely, that he had acted strangely for some time. While Ruth could not explain all of his conduct, she insisted that he had always treated his family fairly and refused to agree to the program of trying to dissuade him from further work.

154:6.2 (1721.2) On the way to Zebedee's house they talked these things over and agreed among themselves to try to persuade Jesus to come home with them, for, said Mary: “I know I could influence my son if he would only come home and listen to me.” James and Jude had heard rumors concerning the plans to arrest Jesus and take him to Jerusalem for trial. They also feared for their own safety. As long as Jesus was a popular figure in the public eye, his family allowed matters to drift along, but now that the people of Capernaum and the leaders at Jerusalem had suddenly turned against him, they began keenly to feel the pressure of the supposed disgrace of their embarrassing position.

154:6.3 (1721.3) They had expected to meet Jesus, take him aside, and urge him to go home with them. They had thought to assure him that they would forget his neglect of them — they would forgive and forget — if he would only give up the foolishness of trying to preach a new religion which could bring only trouble to himself and dishonor upon his family. To all of this Ruth would say only: “I will tell my brother that I think he is a man of God, and that I hope he would be willing to die before he would allow these wicked Pharisees to stop his preaching.” Joseph promised to keep Ruth quiet while the others labored with Jesus.

154:6.4 (1721.4) When they reached the Zebedee house, Jesus was in the very midst of delivering his parting address to the disciples. They sought to gain entrance to the house, but it was crowded to overflowing. Finally they established themselves on the back porch and had word passed in to Jesus, from person to person, so that it finally was whispered to him by Simon Peter, who interrupted his talking for the purpose, and who said: “Behol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outside, and they are very anxious to speak with you.” Now it did not occur to his mother how important was the giving of this parting message to his followers,

로 인해 어느 순간에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두드리지게 거리감이 있는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실제로 그를 만나고자 하는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말씀하던 것을 곧 중단하고 그들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어머니는 진정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업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그의 이 세상 가족이 납득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경우에 불과했다. 그런데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가 그 메시지를 받은 후 말하기를 중단했음에도, 자신들에게 인사하러 달려 나오는 대신,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를 위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해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며; 내 가족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용기를 갖고 천국 **아버지**를 믿으라고 전하라. 그러나 결국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방 안에 모여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내게는 어머니가 없으며; 동생도 없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내 어머니,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 **유다**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도록 뜰로 모셔갔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작별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심부름꾼이 급히 **디베라**에서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위임장을 가진 **산헤드린** 관원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중이라는 말을 전했다. **안드레**가 그 메시지를 받아, **예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그에게 전했다.

안드레는, **다윗**이 약 25명의 보초를 **세베대**의 집 주변에 배치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불시에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었다. **주님**은 침묵을 지킨 채 거기에 서있었으며, 한편 뜰에서는 “내게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가 충격에서 회복 중에 있었다. 바로 이때 그 방에 있던 한 여자가 일어나서,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께서 잠시 몸을 돌려 그 여자에게 대답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neither did she know that his address was likely to be terminated any moment by the arrival of his apprehenders. She really thought, after so long an apparent estrange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she and his brothers had shown the grace actually to come to him, that Jesus would cease speaking and come to them the moment he received word they were waiting.

154:6.5 (1722.1) It was just another of those instances in which his earth family could not comprehend that he must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And so Mary and his brothers were deeply hurt when, notwithstanding that he paused in his speaking to receive the message, instead of his rushing out to greet them, they heard his musical voice speak with increased volume: "Say to my mother and my brothers that they should have no fear for me. The Father who sent me into the world will not forsake me; neither shall any harm come upon my family. Bid them be of good courage and put their trust in the Father of the kingdom. But, after all,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And stretching forth his hands toward all of his disciples assembled in the room, he said: "I have no mother; I have no brothers. Behold my mother and behold my brethren! For whos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the same is my mother, my brother, and my sister."

154:6.6 (1722.2) And when Mary heard these words, she collapsed in Jude's arms. They carried her out in the garden to revive her while Jesus spoke the concluding words of his parting message. He would then have gone out to confer with his mother and his brothers, but a messenger arrived in haste from Tiberias bringing word that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were on their way with authority to arrest Jesus and carry him to Jerusalem. Andrew received this message and, interrupting Jesus, told it to him.

154:6.7 (1722.3) Andrew did not recall that David had posted some twenty-five sentinels about the Zebedee house, and that no one could take them by surprise; so he asked Jesus what should be done. The Master stood there in silence while his mother, having heard the words, "I have no mother," was recovering from the shock in the garden. It was at just this time that a woman in the room stood up and exclaimed,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blessed are the breasts that nursed you." Jesus turned aside a moment from his conversation with Andrew to answer this woman by saying, "No, rather is the one blessed who hears the word of God and dares to obey it."

154:6.8 (1722.4) Mary and Jesus' brothers thought that Jesus did not understand them, that he had lost interest in them, little realizing that it was they who failed to understand Jesus. Jesus fully understood how difficult it is for men to break with their past. He knew how human beings are swayed by the

설교자의 웅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좌우되고, 정신이 논리와 이성애 반응하듯이, 양심이 어떻게 감정적 호소에 반응하는지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과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도 알았다.

오해받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는 동정심 많은 친구와 이해심 있는 조언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람의 적이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이런 예언이 이토록 빨리 자신들의 체험이 되리라고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 가족을 버리지는 않았다--그들이 그를 버렸다. 나중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 **야고보**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여했을 때, 그는 **예수**를 비롯해 그 제자들과 초기부터 연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간 정신의 한정된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했다. 단지 사람의 신분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체험하기로 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가족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인간 정신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설교를 중도에 멈추고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끝낸 다음 떠나기 전에 그들과 사적(私的)으로 만날 계획이었지만, 바로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려옴으로써, 이 계획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들이 서둘러 떠나야 했던 일은, **세베대**의 집 뒷문에 **다윗**의 심부름꾼들 일행이 도착함으로써 야기됐다. 이 사람들로 인해 빚어진 소동으로 놀란 사도들은, 새로 도착한 이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자들일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앞문을 통해 대기해 놓은 배로 급히 갔다. **예수**께서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을 왜 만나러 가지 않았는지를, 이 모든 것이 설명해 준다.

그러나 급히 달아나서 배에 오르는 와중에도, 그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당부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들이 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내가 그들을 만나러 했었다는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나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구하라고 일러줘라.”

7. 황급한 도피

그렇게 해서, 서기 29년 5월 22일,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열두 명의 전도자를 데리고 **산헤드린** 관원들을 피해 급히 떠났는데,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를 체포하여, **유대인**들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한 죄와 다른 죄명으로 재판을 하도록, **예루살**

preacher's eloquence, and how the conscience responds to emotional appeal as the mind does to logic and reason, but he also knew how far more difficult it is to persuade men to *disown the past*.

154:6.9 (1722.5) It is forever true that all who may think they are misunderstood or not appreciated have in Jesus a sympathizing friend and an understanding counselor. He had warned his apostles that a man's foes may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but he had hardly realized how near this prediction would come to apply to his own experience. Jesus did not forsake his earth family to do his Father's work — they forsook him. Later on, after the Master's death and resurrection, when James became connected with the early Christian movement, he suffered immeasurably as a result of his failure to enjoy this earlier association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154:6.10 (1723.1) In passing through these events, Jesus chose to be guided by the limited knowledge of his human mind. He desired to undergo the experience with his associates as a mere man. And it was in the human mind of Jesus to see his family before he left. He did not wish to stop in the midst of his discourse and thus render their first meeting after so long a separation such a public affair. He had intended to finish his address and then have a visit with them before leaving, but this plan was thwarted by the conspiracy of events which immediately followed.

154:6.11 (1723.2) The haste of their flight was augmented by the arrival of a party of David's messengers at the rear entrance of the Zebedee home. The commotion produced by these men frightened the apostles into thinking that these new arrivals might be their apprehenders, and in fear of immediate arrest, they hastened through the front entrance to the waiting boat. And all of this explains why Jesus did not see his family waiting on the back porch.

154:6.12 (1723.3) But he did say to David Zebedee as he entered the boat in hasty flight: “Tell my mother and my brothers that I appreciate their coming, and that I intended to see them. Admonish them to find no offense in me but rather to seek for a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and for grace and courage to do that will.”

7. THE HASTY FLIGHT

154:7.1 (1723.4) And so it was on this Sunday morning, the twenty-second of May, in the year A.D. 29, that Jesus, with his twelve apostles and the twelve evangelists, engaged in this hasty flight from the Sanhedrin officers who were on their way to Bethsaida with authority from Herod Antipas to arrest him and take him to Jerusalem for trial on

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벳새다**로 오고 있었다. 25명의 이 일행이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으로 간 것은, 이 아름다운 아침에 거의 여덟 시 반이 지날 때였다.

주님의 배 뒤에 또 하나의 작은 배가 여섯 명의 **다윗** 심부름꾼을 태우고 따라갔고, 그들은 **예수**와 그 동역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또한 그들의 근황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지시 받았는데, 그곳은 한동안 천국 활동의 본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집에 다시는 머물지 않았다. **주님**은 이때부터 이 세상에서 나머지 기간 내내 진정으로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안정된 거주지나 그 비슷한 것조차 없었다.

그들은 **케레사** 동네 가까이까지 노를 저어갔다. 그들은 거기서 친구에게 배를 맡겨놓고,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뜻 깊은 마지막 해의 방랑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케레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서 **빌립**의 영역 내에 머물렀고, 거기서부터 **페니키아** 해변으로 길을 잡았다.

세베대의 집 주변에 서성거리던 인파는, 이 두 배가 동쪽 물가를 향해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바라봤으며, **예루살렘** 관원들이 서둘러 **예수**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들이 이미 떠난 지 오랜 후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피해 달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와 그 일행이 **바타니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바리새인**과 그 보좌관들은 **가버나움**의 근처에서 그를 찾느라 한 주일 내내 허비했다.

예수의 가족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한 주를 이야기와 논쟁과 기도를 하며 지냈다. 그들은 혼란과 놀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룻**이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룻**은 가장인 **오빠**가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페니키아** 해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집에서 **다윗**으로부터 들었다.

charges of blasphemy and other violations of the sacred laws of the Jews. It was almost half past eight this beautiful morning when this company of twenty-five manned the oars and pulled for the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154:7.2 (1723.5) Following the Master's boat was another and smaller craft, containing six of David's messengers, who had instructions to maintain contact with Jesus and his associates and to see that information of their whereabouts and safety was regularly transmitted to the home of Zebedee in Bethsaida, which had served as headquarters for the work of the kingdom for some time. But Jesus was never again to make his home at the house of Zebedee. From now on,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the Master truly "had not where to lay his head." No more did he have even the semblance of a settled abode.

154:7.3 (1723.6) They rowed over to near the village of Kheresa, put their boat in the custody of friends, and began the wanderings of this eventful last year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For a time they remained in the domains of Philip, going from Kheresa up to Caesarea-Philippi, thence making their way over to the coast of Phoenicia.

154:7.4 (1723.7) The crowd lingered about the home of Zebedee watching these two boats make their way over the lake toward the eastern shore, and they were well started when the Jerusalem officers hurried up and began their search for Jesus. They refused to believe he had escaped them, and while Jesus and his party were journeying northward through Batanea, the Pharisees and their assistants spent almost a full week vainly searching for him in the neighborhood of Capernaum.

154:7.5 (1724.1) Jesus' family returned to their home in Capernaum and spent almost a week in talking, debating, and praying. They were filled with confusion and consternation. They enjoyed no peace of mind until Thursday afternoon, when Ruth returned from a visit to the Zebedee house, where she learned from David that her father-brother was safe and in good health and making his way toward the Phoenician coast.

제155편. 갈릴리 북부를 거쳐서 도피함

⇨ 154

유랜시아 책

15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55편

갈릴리 북부를 거쳐서 도피함

섹션

소개

1.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나?
2. 고라신에서 전도자들
3. 가이사랴_빌립보에서
4. 페니키아로 가는 길
5. 진정한 종교에 대한 강론
6. 종교에 관한 두 번째 강론

PAPER 155

FLEEING THROUGH NORTHER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Why Do the Heathen Rage?
2. The Evangelists in Chorazin
3. At Caesarea-Philippi
4. On the Way to Phoenicia
5. The Discourse on True Religion
6. The Second Discourse on Religion

소개

이 획기적인 일요일에, **예수**와 스물 네 명은, **케레사** 근처에 배를 댄 뒤에 곧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갔고, **벳새다_유리아** 남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전에 여기서 며칠 보낸 적이 있었으므로, 이 야영지를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은 추종자들을 주위에 부르고, **바타니아**와 북부 **갈릴리**를 거쳐서 **페니키아** 해변까지 가려고 예정한 여행에 관해 그들과 상의했다.

INTRODUCTION

155:0.1 (1725.1) SOON after landing near Kheresa on this eventful Sunday, Jesus and the twenty-four went a little way to the north, where they spent the night in a beautiful park south of Bethsaida-Julias. They were familiar with this camping place, having stopped there in days gone by. Before retiring for the night, the Master called his followers around him and discussed with them the plans for their projected tour through Batanea and northern Galilee to the Phoenician coast.

1.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나?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시편** 기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는,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민족의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주**(主)와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자비의 끈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계율을 던져 버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너희는 오늘 날 이것이 너희 눈앞에 이뤄졌음을 본다. 그러나 너희는 **시편** 기자의 나머지 예

1. WHY DO THE HEATHEN RAGE?

155:1.1 (1725.2) Said Jesus: “You should all recall how the Psalmist spoke of these times, saying, ‘Why do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of the people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Let us break the bonds of mercy asunder and let us cast away the cords of love.’

155:1.2 (1725.3) “Today you see this fulfilled before your eyes. But you shall not see the remainder of

인들이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인데, 그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땅에서 이를 그의 사명에 대해 틀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자비로 선포되며, 이타적 봉사로 확립된다. 내 **아버지**는, 이교도를 비웃으면서 하늘에 앉아계신 분이 아니다. 기분 나쁘다고 격노하는 분이 아니다. **아들**이 소위 이 이교도를 (실제로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형제들을) 유산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은 사실이다. 나는 이 이교도를 자비와 애정의 팔을 벌려서 맞아들일 것이다. 승리의 **아들**이 '이교도를 쇠막대기로 쳐서 질 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소위 이교도들 위에 이 사랑의 '자비가 임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에게 '주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훈계하지만--나는 너희에게 신앙으로 신성한 아들신분이 되는 고양된 특전을 받으라고 명하며; 그는 너희에게 떨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명한다. 그는 말하기를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그의 분노에 불이 붙을 때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와 함께 생활해 온 너희는, 분노와 노여움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늘 나라를 설립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시편** 기자도 이 훈계를 끝내면서, '이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함으로써, 참 빛을 어렵 못이 감지했다."

예수께서는 스물네 명에게 계속 가르쳤다: "이교도가 우리에게 화낼 때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 이교도는 소견이 좁고 편협하므로, 자신의 에너지 열렬하게 집중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까이 있고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용감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쓴다. 하늘 나라로 들어간다고 고백한 너희가 가르치는 행동은, 전체적으로 우유부단하고 불분명하다. 이교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너희는 너무 만성적으로 동경만 하는 잘못을 범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자 한다면, 마치 이교도가 자신이 포위 공격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처럼, 왜 영적 기습공격으로 천국을 차지하지 않는가? 대체로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상황을 꾸밈하며 부질없이 미래를 희망하는 태도로 봉사한다면, 너희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동경으로 번민하는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동경을 그만두고, 용감하게 나가서 천국 건설에 관계되는 일을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전문화 되지 않게 하라.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바리새인**은,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에 너무 얽매어서 편견으로 눈이 멀었고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리스인**을 보라, **유대인**이 과학 없는 종교를 믿는 동안, 그들은 종교 없는 과학을 신봉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인도되어, 사람들이 편협하고 혼란스런 와해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the Psalmist's prophecy fulfilled, for he entertained erroneous ideas about the Son of Man and his mission on earth. My kingdom is founded on love, proclaimed in mercy, and established by unselfish service. My Father does not sit in heaven laughing in derision at the heathen. He is not wrathful in his great displeasure. True is the promise that the Son shall have these so-called heathen (in reality his ignorant and untaught brethren) for an inheritance. And I will receive these gentiles with open arms of mercy and affection. All this loving-kindness shall be shown the so-called heathen, notwithstanding the unfortunate declaration of the record which intimates that the triumphant Son 'sha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and dash them to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The Psalmist exhorted you to 'serve the Lord with fear' — I bid you enter into the exalted privileges of divine sonship by faith; he commands you to rejoice with trembling; I bid you rejoice with assurance. He says,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perish when his wrath is kindled.' But you who have lived with me well know that anger and wrath are not a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But the Psalmist did glimpse the true light when, in finishing this exhortation, he said: 'Blessed are they who put their trust in this Son.'"

155:1.3 (1725.4)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twenty-four, saying: "The heathen are not without excuse when they rage at us. Because their outlook is small and narrow, they are able to concentrate their energies enthusiastically. Their goal is near and more or less visible; wherefore do they strive with valiant and effective execution. You who have professed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are altogether too vacillating and indefinite in your teaching conduct. The heathen strike directly for their objectives; you are guilty of too much chronic yearning. If you desire to enter the kingdom, why do you not take it by spiritual assault even as the heathen take a city they lay siege to? You are hardly worthy of the kingdom when your service consists so largely in an attitude of regretting the past, whining over the present, and vainly hoping for the future. Why do the heathen rage? Because they know not the truth. Why do you languish in futile yearning? Because you obey not the truth. Cease your useless yearning and go forth bravely doing that which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155:1.4 (1726.1) "In all that you do, become not one-sided and overspecialized. The Pharisees who seek our destruction verily think they are doing God's service. They have become so narrowed by tradition that they are blinded by prejudice and hardened by fear. Consider the Greeks, who have a science without religion, while the Jews have a religion without science. And when men become thus misled into accepting a narrow and confused disintegration of truth, their only hope of salvation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진리와_조화되는 것--곧 개심하는 것--뿐이다.

“이 영원한 진리를 단호히 주장한다: 너희가 진리에 조화됨으로써, 너희 삶에 이 아름다운 정의의 온전함을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배운다면, 동료들도 너희가 그렇게 획득한 그것을 얻기 위해 너희를 따라가려 할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마음이 끌리는 만큼, 너희는 진리 재능, 즉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야 한다면, 어떤 면에서, 너희가 온전하거나 의로운 삶, 즉 진리와_조화된 삶을 그만큼 살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그에게 밤 인사를 하고 잠자리 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가르쳤다.

is to become truth-co-ordinated — converted.

155:1.5 (1726.2) “Let me emphatically state this eternal truth: If you, by truth co-ordination, learn to exemplify in your lives this beautiful wholeness of righteousness, your fellow men will then seek after you that they may gain what you have so acquired. The measure wherewith truth seekers are drawn to you represents the measure of your truth endowment, your righteousness. The extent to which you have to go with your message to the people is, in a way, the measure of your failure to live the whole or righteous life, the truth-co-ordinated life.”

155:1.6 (1726.3) And many other things the Master taught his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before they bade him good night and sought rest upon their pillows.

2. 고라신에서 전도자들

5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열두 명의 전도자를 데리고 **고라신**으로 가도록 명하고, 자신은 나머지 열한 명의 사도와 함께 **가이사라_빌립보**를 향해 떠났는데, **요단강**을 경유해서 **다마섹_가버나움** 길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이사라_빌립보**로 가는 교차로를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갔고, 거기서 2주간 머물면서 가르쳤다. **예수**의 일행이 도착한 때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였다.

베드로와 전도자들은 **고라신**에 2주 동안 머물렀고, 숫자는 작지만 진지한 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은 새 개종자를 많이 얻지 못했다. **갈릴리** 전 지역의 어떤 도시에서도, **고라신** 만큼 천국을 갈망하는 혼이 거의 없었던 곳은 없었다.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열두 전도자는 --육체적인-- 치유에 관해보다, 하늘 나라에 대한 영적 진리를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했다. **고라신**에서 두 주는, 그때까지의 경력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생산적인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열두 전도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역경으로 정화(淨化)되는 기간이었다. 천국을 갈망하는 혼을 거둬들이는 만족감을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혼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적 길에서 자신의 혼이 얼마나 전진했는지를, 좀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살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듯이 보이자, 6월 7일 화요일에 **베드로**가 동역자들을 모두 소집했고, **예수** 및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가이사라_빌립보** 지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요일 정오쯤 거기에 도착해서, 저녁 내내 **고라신**의 비신자들 사이에서 겪었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보냈다. 이날 저녁 토론 중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 좀 더 이야기했

2. THE EVANGELISTS IN CHORAZIN

155:2.1 (1726.4) On Monday morning, May 23, Jesus directed Peter to go over to Chorazin with the twelve evangelists while he, with the eleven, departed for Caesarea-Philippi, going by way of the Jordan to the Damascus-Capernaum road, thence northeast to the junction with the road to Caesarea-Philippi, and then on into that city, where they tarried and taught for two weeks. They arrived during the afternoon of Tuesday, May 24.

155:2.2 (1726.5) Peter and the evangelists sojourned in Chorazin for two weeks,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a small but earnest company of believers. But they were not able to win many new converts. No city of all Galilee yielded so few souls for the kingdom as Chorazin. In accordance with Peter's instructions the twelve evangelists had less to say about healing — things physical — while they preached and taught with increased vigor the spiritual truths of the heavenly kingdom. These two weeks at Chorazin constituted a veritable baptism of adversity for the twelve evangelists in that it was the most difficult and unproductive period in their careers up to this time. Being thus deprived of the satisfaction of winning souls for the kingdom, each of them the more earnestly and honestly took stock of his own soul and its progress in the spiritual paths of the new life.

155:2.3 (1726.6) When it appeared that no more people were minded to seek entrance into the kingdom, Peter, on Tuesday, June 7,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departed for Caesarea-Philippi to join Jesus and the apostles. They arrived about noontime on Wednesday and spent the entire evening in rehearsing their experiences among the unbelievers of Chorazin. During the discussions of this evening Jesus made further

고, 그들에게 인생살이에서 명백한 실패의 의미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줬다.

3. 가이사라_빌립보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라_빌립보** 지방 근처에 머문 2주 동안에 공적 업무는 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도들은 그 도시에서 수많은 밤 집회를 조용히 가졌으며, 많은 신자가 **주님**과 이야기하려고 그 야영지로 찾아왔다. 이 방문 결과로 신자들 집단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매일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하늘 나라를 전파하는 업무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하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성한 아들신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영적 기쁨을 실현하는 것”임을 납득하기 시작했다.

가이사라_빌립보에 체류한 것은 열한 사도들에게 진정한 시험이었으며; 그 두 주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했고, **베드로**의 열정적 인간성으로 인한 간헐적 자극을 그리워했다. 이 시기에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기가 진정으로 크고 벽한 모험이었다. 그들이 두 주 동안 개종자를 거의 얻지 못했지만, 매일 가졌던 **주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우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다.

사도들은, **유대인**이 진리를 하나의 신조(信條)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또한 진리가 영적 안내와 진보의 이정표로서 이바지하는 대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배타성의 경계선으로 굳어져 버릴 때, 그런 교훈은 자체의 창조력과 생명_수여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단지 보존되고 화석화(化石化)될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인간의 인격을 그 가능성에 기초하여 바라보는 방법을, 그들은 **예수**에게서 점점 더 배우게 됐다. 그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많은 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동료들에 대한 이타적 봉사에 관한 **예수**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가 가미됐다: “너희가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이사라에서 보낸 이 체류기간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전통의 기원과 연관된 것, 즉 신성하지 않은 물건, 일반 관념, 또는 일상적 사건에 신성한 느낌이 덧붙여지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연관된 것이었다. 진정한 종교란,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나는 충성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진실한 신념에 바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어느 한 회담에서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됐다.

reference to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taught them much about the meaning of the apparent failure of life undertakings.

3. AT CAESAREA-PHILIPPI

155:3.1 (1727.1) Although Jesus did no public work during this two weeks' sojourn near Caesarea-Philippi, the apostles held numerous quiet evening meetings in the city, and many of the believers came out to the camp to talk with the Master. Very few were added to the group of believers as a result of this visit. Jesus talked with the apostles each day, and they more clearly discerned that a new phase of the work of preaching the kingdom of heaven was now beginning. They were commencing to comprehend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meat and drink but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ual joy of the acceptance of divine sonship.”

155:3.2 (1727.2) The sojourn at Caesarea-Philippi was a real test to the eleven apostles; it was a difficult two weeks for them to live through. They were well-nigh depressed, and they missed the periodic stimulation of Peter's enthusiastic personality. In these times it was truly a great and testing adventure to believe in Jesus and go forth to follow after him. Though they made few converts during these two weeks, they did learn much that was highly profitable from their daily conferences with the Master.

155:3.3 (1727.3) The apostles learned that the Jews were spiritually stagnant and dying because they had crystallized truth into a creed; that when truth becomes formulated as a boundary line of self-righteous exclusiveness instead of serving as signposts of spiritual guidance and progress, such teachings lose their creative and life-giving power and ultimately become merely preservative and fossilizing.

155:3.4 (1727.4) Increasingly they learned from Jesus to look upon human personalities in terms of their possibilities in time and in eternity. They learned that many souls can best be led to love the unseen God by being first taught to love their brethren whom they can see. And it was in this connection that new meaning became attached to the Master's pronouncement concerning unselfish service for one's fellows: “Inasmuch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my brethren, you did it to me.”

155:3.5 (1727.5) One of the great lessons of this sojourn at Caesarea had to do with the origin of religious traditions, with the grave danger of allowing a sense of sacredness to become attached to nonsacred things, common ideas, or everyday events. From one conference they emerged with the teaching that true religion was man's heartfelt loyalty to his highest and truest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열망이 단지 물질적일 뿐이라면, 초자연적으로 기원된다고 가정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대신 들어섬으로써, 자연에 관한 증가하는 지식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리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가 영적이라면, 영원한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들은, 종교가 온전히 영적 동기를 가졌을 때, 모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한편, 고귀한 목적을 부여하고, 초월적 가치로 존귀하게 하고, 훌륭한 동기로 영감을 주며, 그렇게 하면서 장엄하고 지속되는 희망으로 인간의 혼을 격려한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종교는, 존재의 긴장상태를 줄여주도록 고안됐으며; 일상생활과 이타적 봉사를 위해 신앙과 용기를 발산한다. 신앙은 영적 활력과 의로운 풍성함을 장려한다.

예수께서는, 어떤 문명이든지 그 자체의 종교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또한 그는, 종교 체험 대신 종교의 상징과 예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심히 위험한지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얼어붙은 형태의 종교를 녹여서, 계몽된 아들신분이라는 막힘없는 자유 속으로 흐르게 하는 사명에, 그는 이 세상의 생애 전부를 한결같이 바쳤다.

4. 페니키아로 가는 길

6월 9일 목요일 아침에, **벳새다**에 있는 **다윗**의 심부름꾼들로부터 천국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소식을 받은 후, 진리를 가르치는 이 스물다섯 선생 집단은, **페니키아** 연안 지방으로 여행하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났다. 그들은 늪지대 지역을 돌아, **루즈**를 거쳐서, **막달라 레바논 산**의 오솔길과 만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시돈**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렀으며,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도착했다.

루즈 근처 바위 그늘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쉬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했던 전체 기간 중에 사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특기할만한 말씀을 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영이 이 땅에 하늘 나라를 건설하려는 우리를 후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적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갑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진리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도마**가 끼어들어서 물었다: “**주님**,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적들의 종교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리 종교에서 진정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convictions.

155:3.6 (1727.6) Jesus warned his believers that, if their religious longings were only material, increasing knowledge of nature would, by progressive displacement of the supposed supernatural origin of things, ultimately deprive them of their faith in God. But that, if their religion were spiritual, never could the progress of physical science disturb their faith in eternal realities and divine values.

155:3.7 (1727.7) They learned that, when religion is wholly spiritual in motive, it makes all life more worth while, filling it with high purposes, dignifying it with transcendent values, inspiring it with superb motives, all the while comforting the human soul with a sublime and sustaining hope. True religion is designed to lessen the strain of existence; it releases faith and courage for daily living and unselfish serving. Faith promotes spiritual vitality and righteous fruitfulness.

155:3.8 (1727.8) Jesus repeatedly taught his apostles that no civilization could long survive the loss of the best in its religion. And he never grew weary of pointing out to the twelve the great danger of accepting religious symbols and ceremonies in the place of religious experience. His whole earth life was consistently devoted to the mission of thawing out the frozen forms of religion into the liquid liberties of enlightened sonship.

4. ON THE WAY TO PHOENICIA

155:4.1 (1728.1) On Thursday morning, June 9, after receiving word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brought by the messengers of David from Bethsaida, this group of twenty-five teachers of truth left Caesarea-Philippi to begin their journey to the Phoenician coast. They passed around the marsh country, by way of Luz, to the point of junction with the Magdala-Mount Lebanon trail road, thence to the crossing with the road leading to Sidon, arriving there Friday afternoon.

155:4.2 (1728.2) While pausing for lunch under the shadow of an overhanging ledge of rock, near Luz, Jesus delivered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dresses which his apostles ever listened to throughout all their years of association with him. No sooner had they seated themselves to break bread than Simon Peter asked Jesus: “Master, since the Father in heaven knows all things, and since his spirit is our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why is it that we flee from the threats of our enemies? Why do we refuse to confront the foes of truth?” But before Jesus had begun to answer Peter’s question, Thomas broke in, asking: “Master, I should really like to know just what is wrong with the religion of our enemies at Jerusalem. What is the real

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토록 다양한 믿음이 있는지요?”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공공연히 충돌하는 것을 피함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점심 식사를 끝낸 후에 계속 진행하겠다.”

5. 진정한 종교에 대한 강론

종교에 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 강론을 현대 용어로 요약해서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표현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어느 한 시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중적인 기원--곧 자연스런 기원과 계시적 기원--을 갖는데, 거기서 세 가지 뚜렷한 종교적 헌신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종교적 충동의 이 세 가지 정황은 다음과 같다:

1. 원시 종교. 신비한 능력을 두려워하고 초자연적 힘을 숭배하는, 약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충동으로서, 주로 물질적인 자연 종교, 즉 두려움의 종교.

2. 문명의 종교. 문명화 하는 종족들의 발전하는 종교--곧 정신의 종교--개념과 풍습, 즉 확립된 종교 전통이라는 권위 있는 지적{知的} 신학.

3. 참된 종교 -- 계시 종교. 초자연적 가치를 지닌 계시, 영원한 실체에 대한 부분적 통찰력,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성품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흠아봄--인간 체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영의 종교.

예수께서는 비록 꾸밈없는 사람의 육체적 감각과 미신적 두려움의 종교를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원시적 경배 형태 중에서 매우 많은 부분이, 인류 가운데 총명한 죽에 속하는 종족들의 종교 형태 속에서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탄했다. 예수께서는, 정신의 종교와 영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교회의 권위로 지탱되는 반면, 후자는 전적으로 인간 체험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몸소 가르치는 시간에 다음의 진리를 분명히 했다:

종족들이 고도로 지성적이 되고 더 충분하게 문명화될 때까지, 그런 유치하고 미신적인 예식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존속될 것인데, 그런 예식들은, 원시적이고 뒤떨어진 사람이 믿는 진화하는 종교 풍습의 큰 특징이다. 인간 종족이 영적 체험

difference between their religion and ours? Why is it we are at such diversity of belief when we all profess to serve the same God?” And when Thomas had finished, Jesus said: “While I would not ignore Peter’s question, knowing full well how easy it would be to misunderstand my reasons for avoiding an open clash with the rulers of the Jews at just this time, still it will prove more helpful to all of you if I choose rather to answer Thomas’s question. And that I will proceed to do when you have finished your lunch.”

5. THE DISCOURSE ON TRUE RELIGION

155:5.1 (1728.3) This memorable discourse on religion,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gave expression to the following truths:

155:5.2 (1728.4) While the religions of the world have a double origin — natural and revelatory — at any one time and among any one people there are to be found three distinct forms of religious devotion. And these three manifestations of the religious urge are:

155:5.3 (1728.5) 1. *Primitive religion*. The seminatural and instinctive urge to fear mysterious energies and worship superior forces, chiefly a religion of the physical nature, the religion of fear.

155:5.4 (1728.6) 2. *The religion of civilization*. The advancing religious concepts and practices of the civilizing races — the religion of the mind — the intellectual theology of the authority of established religious tradition.

155:5.5 (1728.7) 3. *True religion — the religion of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supernatural values, a partial insight into eternal realities, a glimpse of the goodness and beauty of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Father in heaven — the religion of the spirit as demonstrated in human experience.

155:5.6 (1729.1) The religion of the physical senses and the superstitious fears of natural man, the Master refused to belittle, though he deplored the fact that so much of this primitive form of worship should persist in the religious forms of the more intelligent races of mankind. Jesus made it clear that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eligion of the mind and the religion of the spirit is that, while the former is upheld by ecclesiastical authority, the latter is wholly based on human experience.

155:5.7 (1729.2) And then the Master, in his hour of teaching, went on to make clear these truths:

155:5.8 (1729.3) Until the races become highly intelligent and more fully civilized, there will persist many of those childlike and superstitious ceremonies which are so characteristic of the evolutionary religious practices of primitive and

의 실체를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좀 더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남녀가 오로지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권위의 종교를 개인적으로 계속 선호{選好}할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영{靈}의 종교에는, 진취적 인간 체험을 겪는 벽찬 현실과 맞붙어 싸우는 신앙의 모험에, 정신과 혼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한다.

전통적인 권위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본성의 열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의 충동에 대해 쉬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안정되고 정형화되고 확립돼 있는 권위의 종교는, 사람의 심란하고 혼란스런 혼이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괴로워할 때, 피신할 수 있는 예비된 도피처를 제공한다. 그런 종교는, 그 종교에 만족하고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代價}로, 오직 수동적이고 순수하게 지적인 동의만을 헌신자들에게 요구한다.

이 세상에는, 소심하고 겁 많고 우유부단한, 그리하여 종교적 위로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할 개인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인데, 비록 그렇더라도, 그들은 권위 종교와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인격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자존감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며, 가능한 모든 인간 체험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는데, 그 체험은: 개인적인 진리 추구, 지적 발견의 위험에 대처하는 유쾌함,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실체를 탐사하려는 결심, 그리고 --사람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그를 발견하는-- 모든 인간 실존의 최상의 모험에서 정직하게 성취하는 승리, 영적 신앙이 지적 의심을 이기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만족감,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만족을 얻는 체험 등이다.

영의 종교는, 노력, 투쟁, 갈등, 신앙, 결정, 사랑, 충성, 및 진보를 의미한다. 정신의 종교는--곧 권위를 내세우는 신학은-- 형식에 치우친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전통은 겁 많고 반신반의하는 혼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이고 가기 쉬운 경로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취적 인간 정신이 발견하고 진화하는 인간 혼이 체험할 수도 있는, 먼 바닷가의 영적 실체를 찾아서, 미지{未知}의 진리라는 숭고한 바다에 감히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항해와 관련된, 영갈등 및 정신적 불확실성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 스승 및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해 준 다양한 교리를, 기존의 지적 믿음 체계로, 즉 권위의 종교로 공식화시켰다. 그런 종교는 대개 인간 정신에 호소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새 종교를 선언할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backward peoples. Until the human race progresses to the level of a higher and more general recognition of the realities of spiritual experience, large numbers of men and women will continue to show a personal preference for those religions of authority which require only intellectual assent, in contrast to the religion of the spirit, which entails active participation of mind and soul in the faith adventure of grappling with the rigorous realities of progressive human experience.

155:5.9 (1729.4) The acceptance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of authority presents the easy way out for man's urge to seek satisfaction for the longings of his spiritual nature. The settled, crystallized, and established religions of authority afford a ready refuge to which the distracted and distraught soul of man may flee when harassed by fear and tormented by uncertainty. Such a religion requires of its devotees, as the price to be paid for its satisfactions and assurances, only a passive and purely intellectual assent.

155:5.10 (1729.5) And for a long time there will live on earth those timid, fearful, and hesitant individuals who will prefer thus to secure their religious consolations, even though, in so casting their lot with the religions of authority, they compromise the sovereignty of personality, debase the dignity of self-respect, and utterly surrende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at most thrilling and inspiring of all possible human experiences: the personal quest for truth, the exhilaration of facing the perils of intellectual discovery, the determination to explore the realities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the supreme satisfaction of experiencing the personal triumph of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victory of spiritual faith over intellectual doubt as it is honestly won in the supreme adventure of all human existence — man seeking God, for himself and as himself, and finding him.

155:5.11 (1729.6) The religion of the spirit means effort, struggle, conflict, faith, determination, love, loyalty, and progress. The religion of the mind — the theology of authority — requires little or none of these exertions from its formal believers. Tradition is a safe refuge and an easy path for those fearful and halfhearted souls who instinctively shun the spirit struggles and mental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those faith voyages of daring adventure out upon the high seas of unexplored truth in search for the farther shores of spiritual realities as they may be discovered by the progressive human mind and experienced by the evolving human soul.

155:5.12 (1729.7) And Jesus went on to say: "At Jerusalem the religious leaders have formulated the various doctrines of their traditional teachers and the prophets of other days into an established system of intellectual beliefs, a religion of authority. The appeal of all such religions is largely to the

종교와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곧 이 새 종교는 그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닌 어떤 종교, 사람의 정신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게 최고의 호소를 조성하는 어떤 종교; 그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맺히는 열매, 즉 이런 높은 영적 교류의 진리를 진정으로 참되게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체험 속에 매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열매로부터, 그 종교의 권위를 이끌어내게 될 어떤 종교다."

예수께서 스물네 명을 하나씩 지적하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했다: "자 이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진리와 최고의 장엄함을 너희 스스로 몸소 생생하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실체들을 발견하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포하는 사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박해를, 너희 가운데 누가 견디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옹호하는, 정형화되고 화석화(化石化)된 종교를 따르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으냐? 너희는 두려움에 차있고 심약하며 쉽게 _얻고자 하는가? 진리의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미래를 맡기기 두려운가, 너희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희는 **아버지**를 불신하는가,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 너희는 전통적인 권위 종교의 지적 안정성과 확실성이라는 쉬운 길로 후퇴하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늘 나라인 영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불확실하고 고통스런 미래를 향해,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겠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했던 몇 번 안 되는 감정적 호소 가운데 하나였으며, 말씀을 듣던 스물네 명 전체는,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일치된 충성의 반응을 표시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제지하면서 말씀했다: "이제 너희끼리 따로 가서 각자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거라, 그리고 거기서 내 질문에 대해 냉철한 대답을 찾고, 그렇게 진실하고 진지한 혼의 입장을 발견한 후에, 그 대답을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이신 그 분께 자유롭게 그리고 대담하게 말씀드려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무한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종교의 참뜻이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얼마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사기가 북돋았고, 정신은 매우 고무됐으며, 감정적으로 매우 들떠있었다. 그러나 **안드레**가 그들을 모두 모았을 때, **예수**께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다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서 그 곳에 한동안 머물 것이며, 너희는 모두 들뜬 정신과 몸을 변화시켜서, 더 깊은 충성심과 더 만족스런 영의 체험이 이뤄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행하면서 길을 가는 동안, 스물네 명은 침묵을 지켰으나 곧 서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날 오후 세 시쯤 되자, 더 이상 갈 수 없었으며; 휴식을

mind. And now are we about to enter upon a deadly conflict with such a religion since we will so shortly begin the bold proclamation of a new religion — a religion which is not a religion in the present-day meaning of that word, a religion that makes its chief appeal to the divine spirit of my Father which resides in the mind of man; a religion which shall derive its authority from the fruits of its acceptance that will so certainly appear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all who really and truly become believers in the truths of this higher spiritual communion."

155:5.13 (1730.1) Pointing out each of the twenty-four and calling them by name, Jesus said: "And now, which one of you would prefer to take this easy path of conformity to an established and fossilized religion, as defended by the Pharisees at Jerusalem, rather than to suffer the difficulties and persecutions attendant upon the mission of proclaiming a better way of salvation to men while you realize the satisfaction of discovering for yourselves the beauties of the realities of a living and personal experience in the eternal truths and supreme grandeur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you fearful, soft, and ease-seeking? Are you afraid to trust your future in the hands of the God of truth, whose sons you are? Are you distrustful of the Father, whose children you are? Will you go back to the easy path of the certainty and intellectual settledness of the religion of traditional authority, or will you gird yourselves to go forward with me into that uncertain and troublous future of proclaiming the new truths of the religion of the spirit,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155:5.14 (1730.2) All twenty-four of his hearers rose to their feet, intending to signify their united and loyal response to this, one of the few emotional appeals which Jesus ever made to them, but he raised his hand and stopped them, saying: "Go now apart by yourselves, each man alone with the Father, and there find the unemotional answer to my question, and having found such a true and sincere attitude of soul, speak that answer freely and boldly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whose infinite life of love is the very spirit of the religion we proclaim."

155:5.15 (1730.3)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went apart by themselves for a short time. Their spirits were uplifted, their minds were inspired, and their emotions mightily stirred by what Jesus had said. But when Andrew called them together, the Master said only: "Let us resume our journey. We go into Phoenicia to tarry for a season, and all of you should pray the Father to transform your emotions of mind and body into the higher loyalties of mind and the more satisfying experiences of the spirit."

155:5.16 (1730.4) As they journeyed on down the road, the twenty-four were silent, but presently they began to talk one with another, and by three

취하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가서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듣기 원하며, 이 문제에 관해 저희에게 좀 더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o'clock that afternoon they could not go farther; they came to a halt, and Peter, going up to Jesus, said: “Master, you have spoken to us the words of life and truth. We would hear more; we beseech you to speak to us further concerning these matters.”

6. 종교에 관한 두 번째 강론

그래서 그들이 언덕 그늘 아래 멈춰서 쉬는 동안, 예수께서 영의 종교에 관해 계속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정신의 종교에 만족한 채 머물러 있기 로 선택한, 안전함을 갈망하고 신봉하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 동료들 가운데로부터 빠져 나왔다. 너희는 권위주의적 확신의 느낌을 버리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영적 신앙의 영성{靈性}에 대한 확신을 선택했다. 너희는 규격화된 종교의 엄격한 속박에 대담하게 맞서 싸워 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기록의 권위를 과감히 거부해왔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모세**, **엘리아**,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옛 선지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공급해 오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한 세대에는 주고 다른 세대에는 거둬들임으로써 인류나 세대를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일컫는 잘못을 범하지 말며, 또한 영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전통적 성경을 통해서만 나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에 실패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거듭나기를, 즉 영으로 태어나기를 권해 왔다. 권위라는 어둠과 전통이라는 무기력 상태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서, 인간의 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곧 혼자 힘으로, 자신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며,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하나의 사실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탁월한 체험--곧 가능성을 실현하는 초월적 빛 속으로 이끌어 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통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체험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리하여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물려받은 민족 신앙으로부터 실제 체험을 거쳐서 성취한 개인 신앙으로 옮길 것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 너희는 너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정신의 신학으로부터, 영원한 재능으로 너희 혼 속에 세워지게 될 참된 영의 종교로 진보할 것이다.

너희의 종교는, 전통적 권위를 따르는 단순한 지적 믿음으로부터, 살아있는 신앙의 실제 체험으로 바뀔 것인데, 그 신앙은,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 관계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의 종교는 너희를 희망도 없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며; 영의 종교는 점진적인

6. THE SECOND DISCOURSE ON RELIGION

155:6.1 (1730.5) And so, while they paused in the shade of the hillside, Jesus continued to teach them regarding the religion of the spirit, in substance saying:

155:6.2 (1730.6) You have come out from among those of your fellows who choose to remain satisfied with a religion of mind, who crave security and prefer conformity. You have elected to exchange your feelings of authoritative certainty for the assurances of the spirit of adventurous and progressive faith. You have dared to protest against the grueling bondage of institutional religion and to reject the authority of the traditions of record which are now regarded as the word of God. Our Father did indeed speak through Moses, Elijah, Isaiah, Amos, and Hosea, but he did not cease to minister words of truth to the world when these prophets of old made an end of their utterances.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races or generations in that the word of truth is vouchsafed one age and withheld from another. Commit not the folly of calling that divine which is wholly human, and fail not to discern the words of truth which come not through the traditional oracles of supposed inspiration.

155:6.3 (1731.1) I have called upon you to be born again, to be born of the spirit. I have called you out of the darkness of authority and the lethargy of tradition into the transcendent light of the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of making for yourselves the greatest discovery possible for the human soul to make — the supernal experience of finding God for yourself, in yourself, and of yourself, and of doing all this as a fact in your own personal experience. And so may you pass from death to life, from the authority of tradition to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thus will you pass from darkness to light, from a racial faith inherited to a personal faith achieved by actual experience; and thereby will you progress from a theology of mind handed down by your ancestors to a true religion of spirit which shall be built up in your souls as an eternal endowment.

155:6.4 (1731.2) Your religion shall change from the mere intellectual belief in traditional authority to the actual experience of that living faith which is able to grasp the reality of God and all that relates to the divine spirit of the Father. The religion of the mind ties you hopelessly to the past; the religion of the spirit consists in progressive revelation and

게시에 있고, 영적 이상{理想} 및 영원한 실체들로부터 더 높은 쪽으로, 그리고 더 고귀한 쪽으로 항상 너희를 손짓해 부른다.

권위의 종교는 즉석에서 처리된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잠깐의 만족을 위한 대가{代價}로 너희는 영적 자유와 종교적 해방감을 상실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대가로, 영적으로 거슬리며 불경스럽고 진실성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에 너희 자신을 몰들어 매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또한 퇴색한 종교 형식과 예식에 복종함으로써, 자비와 정의와 진리에 대한 너희 자신의 감각이 침해당하도록, 너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영의 종교는, 영이 너희를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너희가 진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따라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아마 이 영은, 다른 세대들은 듣기를 거부했던 어떤 것을 이 세대에게 나눠줄지도 모른다.

굶주린 혼들을 어둡고 멀리 떨어진 과거로 끌고 가서 그 곳에 방치하는, 그 거짓 종교 선생들에게 부끄럼이 있을 지어다!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깜짝 놀랄 운명에 처했고, 한편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있을 때마다 당황하고 있다. “정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는, 권위의 신학에 대한 단순한 지적 신봉자가 아니었다. 진리를 알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했으며;**하나님**에 관해서 말로만 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훈계하는데, 옛 선지자들의 말을 항상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습관을 버리는 대신, **지도자**의 살아있는 선지자가 되고, 다가오는 천국의 영적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라. 과거에 **하나님**을 알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인간 실존에서 최상의 체험:즉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혼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희생시켜야 하느냐?

인류의 각 종족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자체의 관념적 견해를 가지며;그러므로 정신의 종교는 종족의 다양한 이 견해에 충실해야 한다. 권위의 종교는 결코 통합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통일과 필사자의 형제관계는 오직 영의 종교가 주는 초월_재능으로 인해,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인종 간 정신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인류에게는 똑같이 신성하고 영원한 영이 내주한다. 인간이 형제관계를 이루는 희망은, 오직 다양한 권위의 정신 종교가, 통합하고 고귀하게 하는 영의 종교로--곧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종교로--주입되고, 그 영의 종교에 압도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권위의 종교는 단지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반목시키게 할 뿐이지만;영의

ever beckons you on toward higher and holier achievements in spiritual ideals and eternal realities.

155:6.5 (1731.3) While the religion of authority may impart a present feeling of settled security, you pay for such a transient satisfaction the price of the loss of your spiritual freedom and religious liberty. My Father does not require of you as the price of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that you should force yourself to subscribe to a belief in things which are spiritually repugnant, unholy, and untruthful. It is not required of you that your own sense of mercy, justice, and truth should be outraged by submission to an outworn system of religious forms and ceremonies. The religion of the spirit leaves you forever free to follow the truth wherever the leadings of the spirit may take you. And who can judge — perhaps this spirit may have something to impart to this generation which other generations have refused to hear?

155:6.6 (1731.4) Shame on those false religious teachers who would drag hungry souls back into the dim and distant past and there leave them! And so are these unfortunate persons doomed to become frightened by every new discovery, while they are discomfited by every new revelation of truth. The prophet who said, “He will be kept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God,” was not a mere intellectual believer in authoritative theology. This truth-knowing human had discovered God; he was not merely talking about God.

155:6.7 (1731.5) I admonish you to give up the practice of always quoting the prophets of old and praising the heroes of Israel, and instead aspire to become living prophets of the Most High and spiritual heroes of the coming kingdom. To honor the God-knowing leaders of the past may indeed be worth while, but why, in so doing, should you sacrifice the supreme experience of human existence: finding God for yourselves and knowing him in your own souls?

155:6.8 (1732.1) Every race of mankind has its own mental outlook upon human existence; therefore must the religion of the mind ever run true to these various racial viewpoints. Never can the religions of authority come to unification. Human unity and mortal brotherhood can be achieved only by and through the superendowment of the religion of the spirit. Racial minds may differ, but all mankind is indwelt by the same divine and eternal spirit. The hope of human brotherhood can only be realized when, and as, the divergent mind religions of authority become impregnated with, and overshadowed by, the unifying and ennobling religion of the spirit — the religion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155:6.9 (1732.2) The religions of authority can only divide men and set them in conscientious array

종교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함께 모아서, 서로 이해심을 갖고 공감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권위의 종교는 사람에게 확일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현재 세상 상태로는 실현될 수 없다. 영의 종교는, 믿음의 다양성을 충분히 허락하면서, 단지 체험의 통일--곧 운명의 확일성--을 요구할 뿐이다. 영의 종교는, 견해와 전망의 확일성이 아닌, 오직 통찰력의 확일성만 요구한다. 영의 종교는, 지적 견해들의 확일성이 아니라, 오직 영 느낌의 통일만 요구한다. 권위의 종교는, 생명 없는 신경{信經}으로 정형화시키지만, 영의 종교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선행과 자비로 보살피는 행위,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증가하는 기쁨과 자유 속으로 자라간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런 전통에 얽매인, 열매 없는 악한 시대에 처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조상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헌신했으며, **아담** 시대 이후로 어떤 다른 종족도, 저희가 찾아낸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를 대부분 알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세** 시대 이래,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고 지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투쟁 과정을 아셨다. **유대인**은 여러 세대동안 계속 애쓰고 땀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생하면서 고통을 참아왔으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경멸당하는 슬픔을 감수해 왔는데,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갖 실패와 비틀거림에도, **모세**로부터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는 더욱 분명하고 진실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점차 드러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더욱 큰 계시를 위한 길이 준비됐고, 너희는 그 계시를 나눠주기 위해 부름 받았다.

살아 계신 **아버지**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보다 더 만족스럽고 감동적인 모험은, 오직 신의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시도하는 최상의 체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 있고 세속적인 직업도 있다. 영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삶에서는 모든 직업이 신성시되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리에 복종하게 되고, 사랑으로 고귀하게 되고, 자비심이 풍만해지고, 공정함으로--곧 공의로-- 행동을 절제하게 된다. 내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에 보낼 영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영이기도 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권위를 가진 옛 기록에서만 찾으려 하기를 멈춰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든지 그 말씀을 알아본다. 그 중 여러 경로가 외견상 인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

against each other; the religion of the spirit will progressively draw men together and cause them to become understandingly sympathetic with one another. The religions of authority require of men uniformity in belief, but this is impossible of realization in the present state of the world. The religion of the spirit requires only unity of experience — uniformity of destiny — making full allowance for diversity of belief. The religion of the spirit requires only uniformity of insight, not uniformity of viewpoint and outlook. The religion of the spirit does not demand uniformity of intellectual views, only unity of spirit feeling. The religions of authority crystallize into lifeless creeds; the religion of the spirit grows into the increasing joy and liberty of ennobling deeds of loving service and merciful ministration.

155:6.10 (1732.3) But watch, lest any of you look with disdain upon the children of Abraham because they have fallen on these evil days of traditional barrenness. Our forefathers gave themselves up to the persistent and passionate search for God, and they found him as no other whole race of men have ever known him since the times of Adam, who knew much of this as he was himself a Son of God. My Father has not failed to mark the long and untiring struggle of Israel, ever since the days of Moses, to find God and to know God. For weary generations the Jews have not ceased to toil, sweat, groan, travail, and endure the sufferings and experience the sorrows of a misunderstood and despised people, all in order that they might come a little nearer the discovery of the truth about God. And, notwithstanding all the failures and falterings of Israel, our fathers progressively, from Moses to the times of Amos and Hosea, did reveal increasingly to the whole world an ever clearer and more truthful picture of the eternal God. And so was the way prepared for the still greater revelation of the Father which you have been called to share.

155:6.11 (1732.4) Never forget there is only one adventure which is more satisfying and thrilling than the attempt to discover the will of the living God, and that is the supreme experience of honestly trying to do that divine will. And fail not to remember that the will of God can be done in any earthly occupation. Some callings are not holy and others secular. All things are sacred in the lives of those who are spirit led; that is, subordinated to truth, ennobled by love, dominated by mercy, and restrained by fairness — justice. The spirit which my Father and I shall send into the world is not only the Spirit of Truth but also the spirit of idealistic beauty.

155:6.12 (1732.5) You must cease to seek for the word of God only on the pages of the olden records of theologic authority. Those who are born of the spirit of God shall henceforth discern the word of God regardless of whence it appears to take

성한 진리가 평가절하 돼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진지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주 가르쳤던 이유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적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영적 단순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자라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너희의 혼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너희는 곧 다른 사람의 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결국 거대한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영원한 실체들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에, **아버지**께서 최상으로 충실하고 신성한 이상적{理想的}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만한 무슨 가망이 있을까? 정신은 영적 본성의 중심지가 아닌 반면, 정말로 그곳으로 가는 통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도록 해라; 너희가 그렇게 타당한 증명을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고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날마다 너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

2.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겠다는 소망으로 추구하는 동안, 죽음 이후의 생존하는 모험에 너의 존재 전체와 너의 소유 전체를 아낌없이 걸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너의 전체 생애 계획이 제공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너는 시간 속에서 미리 경험해 왔다.

그러니, 실수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는 아주 희미하게 깜박이는 신앙에도 항상 반응하신다. 그는 원시인의 물질적이고 미신적인 감정도 알아 보신다. 그리고 정직하지만 두려움에 찬 혼들이, 자기 신앙이 너무 약해 권위의 종교에 동의하는 수동적 태도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그런 사람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도달하려는 그런 모든 미약한 시도를 언제나 존중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 받은 너희에게는, 전심을 다하여 믿게 되는 것이 기대되며; 너희의 신앙이, 육체, 정신, 및 영, 이 셋의 결합된 태도를 지배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도이며, 너희에게는 종교가, 영적 진보와 이상적 모험에 따르는 모진 현실에 맞서기 두려워서 피신하고 싶은 신학적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너희의 종교는, **하나**

origin. Divine truth must not be discounted because the channel of its bestowal is apparently human. Many of your brethren have minds which accept the theory of God while they spiritually fail to realize the presence of God. And that is just the reason why I have so often taught you that the kingdom of heaven can best be realized by acquiring the spiritual attitude of a sincere child. It is not the mental immaturity of the child that I commend to you but rather the spiritual simplicity of such an easy-believing and fully-trusting little one. It is not so important t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fact of God as that you should increasingly grow in the ability to feel the presence of God.

155:6.13 (1733.1) When you once begin to find God in your soul, presently you will begin to discover him in other men's souls and eventually in all the creatures and creations of a mighty universe. But what chance does the Father have to appear as a God of supreme loyalties and divine ideals in the souls of men who give little or no time to the thoughtful contemplation of such eternal realities? While the mind is not the seat of the spiritual nature, it is indeed the gateway thereto.

155:6.14 (1733.2)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prove to other men that you have found God; you cannot consciously produce such valid proof, albeit there are two positive and powerful demonstrations of the fact that you are God-knowing, and they are:

155:6.15 (1733.3) 1. The fruits of the spirit of God showing forth in your daily routine life.

155:6.16 (1733.4) 2. The fact that your entire life plan furnishes positive proof that you have unreservedly risked everything you are and have on the adventure of survival after death in the pursuit of the hope of finding the God of eternity, whose presence you have foretasted in time.

155:6.17 (1733.5) Now, mistake not, my Father will ever respond to the faintest flicker of faith. He takes note of the physical and superstitious emotions of the primitive man. And with those honest but fearful souls whose faith is so weak that it amounts to little more than an intellectual conformity to a passive attitude of assent to religions of authority, the Father is ever alert to honor and foster even all such feeble attempts to reach out for him. But you who have been called out of darkness into the light are expected to believe with a whole heart; your faith shall dominate the combined attitudes of body, mind, and spirit.

155:6.18 (1733.6) You are my apostles, and to you religion shall not become a theologic shelter to which you may flee in fear of facing the rugged realities of spiritual progress and idealistic

님께서 너희를 찾으셨고, 높여주셨고, 이상화 시키셨으며, 고귀하게 하셨고, 영성화{靈性化}시키셨음을 증명해 주고, 그렇게 너희를 찾아서 아들로 맞이하신 **하님**을 찾기 위한, 영원한 모험에 참여했음을 증명해 주는, 실제 체험의 사건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안드레**를 불러 **페니키아**가 있는 서쪽을 가리키면서 말씀했다:“우리 길을 가도록 하자.”

adventure; but rather shall your religion become the fact of real experience which testifies that God has found you, idealized, ennobled, and spiritualized you, and that you have enlisted in the eternal adventure of finding the God who has thus found and sonshipped you.

155:6.19 (1733.7)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he beckoned to Andrew and, pointing to the west toward Phoenicia, said: “Let us be on our way.”

제156편. 두로와 시돈에 체류함

⇨ 155

유랜시아 책

157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56편
두로와 시돈에 체류함

섹션

소개

1. 시리아 여자
2. 시돈에서 가르침
3.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행함
4. 두로에서
5. 두로에서 예수의 가르침
6.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PAPER 156

THE SOJOURN AT TYRE AND SID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yrian Woman
2. Teaching in Sidon
3. The Journey up the Coast
4. At Tyre
5. Jesus' Teaching at Tyre
6. The Return from Phoenicia

소개

6월 10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와 동역자들이 **시돈** 근처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부유한 여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여자는 **예수**의 대중적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벳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전도자와 사도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여자의 친구들 집에 머물렀으며, 이런 안락한 환경에서 **안식일** 기간을 쉬면서 보냈다. 그들은 북부 해변 도시들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기 전에, 거의 2주 반을 **시돈**과 그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6월의 이 **안식일**은 매우 조용한 하루였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시돈**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던 종교에 관한 **주님**의 강론에 관해 깊은 묵상에 몰두했다. **예수**께서 일러준 것을,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INTRODUCTION

^{156:0.1 (1734.1)} ON FRIDAY afternoon, June 10, Jesus and his associates arrived in the environs of Sidon, where they stopped at the home of a well-to-do woman who had been a patient in the Bethsaida hospital during the times when Jesus was at the height of his popular favor. The evangelists and the apostles were lodged with her friends in the immediate neighborhood, and they rested over the Sabbath day amid these refreshing surroundings. They spent almost two and one-half weeks in Sidon and vicinity before they prepared to visit the coast cities to the north.

^{156:0.2 (1734.2)} This June Sabbath day was one of great quiet.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were altogether absorbed in their meditations regarding the discourses of the Master on religion to which they had listened en route to Sidon. They were all able to appreciate something of what he had told them, but none of them fully grasped the import of his teaching.

1. 시리아 여자

예수께서 머물렀던 **카루스카**의 집 근처에 한

1. THE SYRIAN WOMAN

^{156:1.1 (1734.3)} There lived near the home of Karuska, where the Master lodged, a Syrian

시리아 여자가 살았는데, **예수**께서 위대한 치유자이자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았고, 이 **안식일** 오후에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열두살 정도 된 아이는 경련 및 기타 고통스런 증상의 특징이 있는 심한 신경증 질환을 앓았다.

예수께서는, 쉬고 싶으니 자기가 **카루스카**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동역자들에게 분부했었다. 그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랐으나, **카루스카**의 하인이 이 **시리아** 여자 **노라나**의 집에 가서 자기 여주인의 집에 **예수**께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고난당하는 딸을 데려와서 치유 받으라고 이 가련한 여자에게 강권했다. 물론 이 어머니는 딸이 불결한 영, 즉 귀신에 붙잡혔다고 믿었다.

노라나가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쉬시는 중이니 그를 방해할 수 없다고, **알패오** 쌍둥이 형제가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했다. **노라나**는 아이와 함께 **예수**의 휴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겠노라고 대답했다. **베드로** 역시 그 여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치유를 하느라 매우 피곤해져서, **페니키아**에는 **예수**께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으며; **노라나**는 떠나려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 그 여자는 단지, “당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치유자가 내 딸을 살펴보기 전에 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려고 애썼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주님**께서 내 아이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릴리**에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들었는데,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을 돌려보내려 하다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여자의 그런 말에 **도마**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열심당 시몬**이 **노라나**를 설득하려고 나섰다; “여자여, 당신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방인이다. **주님**이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실 것이라고 당신이 기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노라나**는 **시몬**의 무례한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단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내가 단지 한 마리 개에 불과하겠지만, 당신의 **주님**에 관한 한, 나는 믿음을 가진 개입니다. 내 딸을 **주님**께 꼭 보이기로 걱정했는데, 그분이 내 딸을 한 번 바라보시기만해도 치유 받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특권을 감히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자아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심

woman who had heard much of Jesus as a great healer and teacher, and on this Sabbath afternoon she came over, bringing her little daughter. The child, about twelve years old, was afflicted with a grievous nervous disorder characterized by convulsions and other distressing manifestations.

156:1.2 (1734.4) Jesus had charged his associates to tell no one of his presence at the home of Karuska, explaining that he desired to have a rest. While they had obeyed their Master's instructions, the servant of Karuska had gone over to the house of this Syrian woman, Norana, to inform her that Jesus lodged at the home of her mistress and had urged this anxious mother to bring her afflicted daughter for healing. This mother, of course, believed that her child was possessed by a demon, an unclean spirit.

156:1.3 (1734.5) When Norana arrived with her daughter, the Alpheus twins explained through an interpreter that the Master was resting and could not be disturbed; whereupon Norana replied that she and the child would remain right there until the Master had finished his rest. Peter also endeavored to reason with her and to persuade her to go home. He explained that Jesus was weary with much teaching and healing, and that he had come to Phoenicia for a period of quiet and rest. But it was futile; Norana would not leave. To Peter's entreaties she replied only: "I will not depart until I have seen your Master. I know he can cast the demon out of my child, and I will not go until the healer has looked upon my daughter."

156:1.4 (1734.6) Then Thomas sought to send the woman away but met only with failure. To him she said: "I have faith that your Master can cast out this demon which torments my child. I have heard of his mighty works in Galilee, and I believe in him. What has happened to you, his disciples, that you would send away those who come seeking your Master's help?" And when she had thus spoken, Thomas withdrew.

156:1.5 (1735.1) Then came forward Simon Zelotes to remonstrate with Norana. Said Simon: "Woman, you are a Greek-speaking gentile. It is not right that you should expect the Master to take the bread intended for the children of the favored household and cast it to the dogs." But Norana refused to take offense at Simon's thrust. She replied only: "Yes, teacher, I understand your words. I am only a dog in the eyes of the Jews, but as concerns your Master, I am a believing dog. I am determined that he shall see my daughter, for I am persuaded that, if he shall but look upon her, he will heal her. And even you, my good man, would not dare to deprive the dogs of the privilege of obtaining the crumbs which chance to fall from the children's table."

156:1.6 (1735.2) At just this time the little girl was

한 경련을 일으키자, 어머니가 외쳤다: “보십시오, 내 아이가 악한 영에 붙잡혔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지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동정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치유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치유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예수**께서, 이때 밖으로 나와 모두를 매우 놀라게 하며 말씀했다: “오, 여자여, 네 신앙이 얼마나 큰지, 네가 바라는 것을 내가 보류할 수 없을 정도이며; 평안히 네 길을 가라. 네 딸은 이미 온전하게 됐다.” 소녀는 그 시각부터 회복됐다. **노라나**와 아이가 떠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동역자들은 이런 분부에 따랐으나, 그 여자와 아이는 온 시골에 두루, 심지어 **시돈**에도 그 소녀가 치유 받았다는 사실을 퍼뜨렸으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수일 내로 숙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사도들을 가르칠 때, **시리아** 여자의 딸의 병을 낫게 해 준 일을 거론하면서 말씀했다: “항상 그래 왔던 것이지만, 이방인이 하늘 나라의 복음의 교훈에 따라서 구원의 신앙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제 너희가 직접 봤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충분한 신앙을 보이는데 유념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2. 시돈에서 가르침

시돈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동역자들이 다리를 하나 건넜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처음 보는 다리였다. 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예수**께서 여러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하며; 너희가 그것을 지나가도 좋지만, 살 집을 그 위에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스물네 명이 **시돈**에서 일을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그 도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저스타**와 그 어머니 **버니스**의 집에 머물렀다. **예수**께서는 매일 아침 **저스타**의 집에서 스물네 명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후와 저녁에 **시돈**으로 가서 가르치고 전도했다.

사도와 전도자들은, 전하는 메시지를 **시돈**에 있는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사기가 많이 올랐으며; 짧은 체류기간에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왔다. **페니키아**에 머물던 약 6주는 혼을 구하는 일에 많은 결실을 거둔 기간이었지만, 후대의 **유대인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적대시했던 바

seized with a violent convulsion before them all, and the mother cried out: “There, you can see that my child i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If our need does not impress you, it would appeal to your Master, who I have been told loves all men and dares even to heal the gentiles when they believe. You are not worthy to be his disciples. I will not go until my child has been cured.”

156:1.7 (1735.3) Jesus, who had heard all of this conversation through an open window, now came outside, much to their surprise, and said: “O woman, great is your faith, so great that I cannot withhold that which you desire; go your way in peace. Your daughter already has been made whole.” And the little girl was well from that hour. As Norana and the child took leave, Jesus entreated them to tell no one of this occurrence; and while his associates did comply with this request, the mother and the child ceased not to proclaim the fact of the little girl’s healing throughout all the countryside and even in Sidon, so much so that Jesus found it advisable to change his lodgings within a few days.

156:1.8 (1735.4) The next day, as Jesus taught his apostles, commenting on the cure of the daughter of the Syrian woman, he said: “And so it has been all the way along; you see for yourselves how the gentiles are able to exercise saving faith in the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Verily, verily, I tell you that the Father’s kingdom shall be taken by the gentiles if the children of Abraham are not minded to show faith enough to enter therein.”

2. TEACHING IN SIDON

156:2.1 (1735.5) In entering Sidon, Jesus and his associates passed over a bridge, the first one many of them had ever seen. As they walked over this bridge, Jesus, among other things, said: “This world is only a bridge; you may pass over it, but you should not think to build a dwelling place upon it.”

156:2.2 (1735.6) As the twenty-four began their labors in Sidon, Jesus went to stay in a home just north of the city, the house of Justa and her mother, Bernice. Jesus taught the twenty-four each morning at the home of Justa, and they went abroad in Sidon to teach and preach during the afternoons and evenings.

156:2.3 (1735.7)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greatly cheer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gentiles of Sidon received their message; during their short sojourn many were added to the kingdom. This period of about six weeks in Phoenicia was a very fruitful time in the work of winning souls, but the later Jewish writers of the

로 이 시기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교훈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다는 기록을 항상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 이방인 신자들은, 여러 면에서 **유대인**보다 더 완전하게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이 **시리아_페니키아인**은, **예수가 하나님**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예수**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위 이 이교도들은, 이 세상 및 전체 우주의 법칙이 확일적이라는 **주님**의 교훈을 잘 이해하게 됐다. 그들은, 어떤 개인, 종족, 또는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을 파악했는데; 즉, **만유의 아버지**는 편애하지 않으시며; 우주는 전적으로 언제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절대로 의존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과감히 받아들였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예수**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납득하기를 두려워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적들과 맞설 용기가 부족해서 **갈릴리**로부터 피해 온 것이 아님을 스물네 명에게 분명히 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존의 종교와 공개적으로 충돌할 준비가 아직은 돼있지 않았다는 것과, 순교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했다. **예수**께서는, **저스타**의 집에서 열린 협의 중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진리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시돈에 머무는 동안, **예수**의 지시사항의 주제는 영적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지해 있을 수 없으며; 정의를 향해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죄와 악으로 빠져들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 “과거 속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천국의 더 위대한 실체들을 포용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들에게 훈계했다. 복음의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자들과 친교하는 가운데, 신성한 아들신분의 완숙한 경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고 그들에게 부탁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제자는 악을 행하기를 멈추는 것은 물론, 현명하게 행하기도 배워야 하며; 너희는 알면서 죄를 범하는 태도를 모두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감정을 품는 것조차 거부해야 한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죄짓지 않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보여준 예리한 유머감각을 매우 즐겼다. **시리아** 여자 **노라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의 크고 집요한 신앙뿐 아니라, 그 여자가 보인 유머감각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 유머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애석해 했다. 그가 **도마**에게 언젠가 말씀했다: “**유대인**은 너무 진지해서 유머를 즐기는 것이 이제 사라지려

Gospels were wont lightly to pass over the record of this warm reception of Jesus' teachings by these gentiles at this very time when such a large number of his own people were in hostile array against him.

156:2.4 (1736.1) In many ways these gentile believers appreciated Jesus' teachings more fully than the Jews. Many of these Greek-speaking Syrophoenicians came to know not only that Jesus was like God but also that God was like Jesus. These so-called heathen achieve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Master's teachings about the uniformity of the laws of this world and the entire universe. They grasped the teaching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races, or nations; that there is no favoritism with the Universal Father; that the universe is wholly and ever law-abiding and unfailingly dependable. These gentiles were not afraid of Jesus; they dared to accept his message. All down through the ages men have not been unable to comprehend Jesus; they have been afraid to.

156:2.5 (1736.2) Jesus made it clear to the twenty-four that he had not fled from Galilee because he lacked courage to confront his enemies. They comprehended that he was not yet ready for an open clash with established religion, and that he did not seek to become a martyr. It was during one of these conferences at the home of Justa that the Master first told his disciples that “even though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my words of truth shall not.”

156:2.6 (1736.3) The theme of Jesus' instructions during the sojourn at Sidon was spiritual progression. He told them they could not stand still; they must go forward in righteousness or retrogress into evil and sin. He admonished them to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in the past while you push forward to embrace the greater realities of the kingdom.” He besought them not to be content with their childhood in the gospel but to strive for the attainment of the full stature of divine sonship in the communion of the spirit and in the fellowship of believers.

156:2.7 (1736.4) Said Jesus: “My disciples must not only cease to do evil but learn to do well; you must not only be cleansed from all conscious sin, but you must refuse to harbor even the feelings of guilt. If you confess your sins, they are forgiven; therefore must you maintain a conscience void of offense.”

156:2.8 (1736.5) Jesus greatly enjoyed the keen sense of humor which these gentiles exhibited. It was the sense of humor displayed by Norana, the Syrian woman, as well as her great and persistent faith, that so touched the Master's heart and appealed to his mercy. Jesus greatly regretted that his people — the Jews — were so lacking in humor. He once said to Thomas: “My people take

하고 있다. **바리새인**의 부담스런 종교는, 유머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일관성이 결핍했으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악대는 삼킨다.”

themselves too seriously; they are just about devoid of an appreciation of humor. The burdensome religion of the Pharisees could never have had origin among a people with a sense of humor. They also lack consistency; they strain at gnats and swallow camels.”

3.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행함

6월 28일 화요일에, **예수**와 동역자들은 **시돈**을 떠나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포피리온**과 **헬두아**로 갔다. 이방인이 그들을 환영했고 이 주간의 가르침과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 많이 들어왔다. 사도들은 **포피리온**에서 전도했고, 전도자들은 **헬두아**에서 가르쳤다. 스물네 명이 그런 식으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4내지 5일 정도 그들을 떠나서 **베이루트**의 해안 도시를 방문했는데, 1년 전에 **벳새다**에 함께 있었던 **말락**이라는 이름의 **시리아인** 신자와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다.

7월 6일 수요일에, 그들은 모두 **시돈**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까지 **저스타**의 집에 머물렀고, 그 후에 **두로**를 향해 떠났으며, **사렙타**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7월 11일 월요일에 **두로**에 도착했다. 이 무렵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실제로는 주로 **셈족**에 기원을 둔, 초기 **가나안** 부족들의 후손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사도와 전도자들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매우 열성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 중에서 많은 이가 기꺼이 믿을 준비가 돼있음에 매우 놀랐다.

3. THE JOURNEY UP THE COAST

^{156:3.1 (1736.6)} On Tuesday, June 28, the Master and his associates left Sidon, going up the coast to Porphyreon and Heldua. They were well received by the gentiles, and many were added to the kingdom during this week of teaching and preaching. The apostles preached in Porphyreon and the evangelists taught in Heldua. While the twenty-four were thus engaged in their work, Jesus left them for a period of three or four days, paying a visit to the coast city of Beirut, where he visited with a Syrian named Malach, who was a believer, and who had been at Bethsaida the year before.

^{156:3.2 (1737.1)} On Wednesday, July 6, they all returned to Sidon and tarried at the home of Justa until Sunday morning, when they departed for Tyre, going south along the coast by way of Sarepta, arriving at Tyre on Monday, July 11. By this time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becoming accustomed to working among these so-called gentiles, who were in reality mainly descended from the earlier Canaanite tribes of still earlier Semitic origin. All of these peoples spoke the Greek language. It was a great surprise to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to observe the eagerness of these gentiles to hear the gospel and to note the readiness with which many of them believed.

4. 두로에서

그들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두로**에서 가르쳤다. 사도들은 각각 전도자 한 명씩 데리고 짝을 지어, **두로** 전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가르치면서 전도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이 분주한 항구도시 주민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공공연히 천국의 친교 속으로 들어왔다. **예수**께서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3내지 4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유대인** 신자의 집에 본부를 유지했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도시국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의 무덤에서 멀지 않았다.

이 두 주 동안, 사도와 전도자들은 소규모 모임을 지도하기 위해, 날마다 **알렉산더** 방파제를 경유해서 **두로**로 들어갔고, 그들 대부분은 매일 밤 도시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많은 신자가 **예수**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 도시

4. AT TYRE

^{156:4.1 (1737.2)} From July 11 to July 24 they taught in Tyre. Each of the apostles took with him one of the evangelists, and thus two and two they taught and preached in all parts of Tyre and its environs. The polyglot population of this busy seaport heard them gladly, and many were baptized into the outward fellowship of the kingdom. Jesus maintained his headquarters at the home of a Jew named Joseph, a believer, who lived three or four miles south of Tyre, not far from the tomb of Hiram who had been king of the city-state of Tyre during the times of David and Solomon.

^{156:4.2 (1737.3)} Daily, for this period of two weeks,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entered Tyre by way of Alexander's mole to conduct small meetings, and each night most of them would return to the encampment at Joseph's house south of the city. Every day believers came out from the city to talk

로부터 그가 쉬고 있는 곳으로 날마다 찾아왔다. **주님**께서는 7월 20일 오후에 단 한번 **두로**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인류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아들**의 사명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 이방인 가운데서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멜카스** 사원의 문이 이때 **예수**께 개방됐으며, 후년에 가서 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옛 사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기록하는 것은 흥미롭다.

두로의 자주색 물감 제조업을 선도{先導}하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는데, 이 자주색 물감은 **두로**와 **시돈**을 온 세계에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적 상업 중심지로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물감 만드는 자원인 해산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물감 제조업자들은 이 갑각류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떠나갔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땅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에 대한 메시지--곧 천국 복음--도 함께 가져갔다.

with Jesus at his resting place. The Master spoke in Tyre only once, on the afternoon of July 20, when he taught the believers concerning the Father's love for all mankind and about the mission of the Son to reveal the Father to all races of men. There was such an interest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mong these gentiles that, on this occasion, the doors of the Melkarth temple were opened to him, and it is interesting to record that in subsequent years a Christian church was built on the very site of this ancient temple.

156:4.3 (1737.4) Many of the leaders in the manufacture of Tyrian purple, the dye that made Tyre and Sidon famous the world over, and which contributed so much to their world-wide commerce and consequent enrichment, believed in the kingdom. When, shortly thereafter, the supply of the sea animals which were the source of this dye began to diminish, these dye makers went forth in search of new habitats of these shellfish. And thus migrating to the ends of the earth, they carried with them the message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 the gospel of the kingdom.

5. 두로에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께서는 이 수요일 오후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더럽고 어두운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햇빛을 향해 순결하고 하얀 꽃을 피우는, 흰 백합에 관한 이야기를 추종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줬다. 그가 말씀했다: "마찬가지로, 필사적 사람의 기원과 뿌리는 인간 본성의 동물적 토양에 두고 있지만, 신앙으로 자신의 영적 본성을 하늘의 진리라는 햇빛을 향해서 자라가게 할 수 있고, 결국 영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이 설교 도중에, **예수**께서는 자기 직업과--곧 목수와-- 관련된 처음이자 마지막 비유를 들려줬다. "영적 재능이라는 고귀한 성품의 성장을 위하여 기초를 잘 세우라"고 훈계하는 도중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영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가 동료들 가운데서 영으로--충만한 삶을 살고자한다면, 너희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벌레 먹고 속이 썩은 나무를 네모지게 다듬고 치수를 재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튼튼치 못한 기둥에 온 정성을 기울인 후에, 그 기둥을 시간의 흐름과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건물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리라는 이유로 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목수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각 사람마다, 지금 그런 성품의 지적 및 도덕적 기초가, 그 상부구조물, 즉 사람을 키우고 고귀하게 하는 영적 본성을 적절히 떠받치는지 확인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필사 정신을 그렇게 전환시키고, 다음에는, 다시 창조된 정신과 연합하여, 불멸하는 운명을 소유한 혼의 발전을 성취하게 돼있다. 너희의 영 본성은--곧 공동으로 창조된 혼은-- 성

5. JESUS' TEACHING AT TYRE

156:5.1 (1737.5) On this Wednesday afternoon, in the course of his address, Jesus first told his followers the story of the white lily which rears its pure and snowy head high into the sunshine while its roots are grounded in the slime and muck of the darkened soil beneath. "Likewise," said he, "mortal man, while he has his roots of origin and being in the animal soil of human nature, can by faith raise his spiritual nature up into the sunlight of heavenly truth and actually bear the noble fruits of the spirit."

156:5.2 (1738.1) It was during this same sermon that Jesus made use of his first and only parable having to do with his own trade — carpentry. In the course of his admonition to "Build well the foundations for the growth of a noble character of spiritual endowments," he said: "In order to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you must be born of the spirit. You must be taught by the spirit and be led by the spirit if you would live the spirit-filled life among your fellows.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e foolish carpenter who wastes valuable time squaring, measuring, and smoothing his worm-eaten and inwardly rotting timber and then, when he has thus bestowed all of his labor upon the unsound beam, must reject it as unfit to enter into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 which he would construct to withstand the assaults of time and storm. Let every man make sure that the intellectual and moral foundations of character are such as will adequately support the superstructure of the enlarging and ennobling spiritual nature, which is thus to transform the mortal mind and

장하는 생명체이지만, 개인의 정신과 도덕은, 인간적 발달과 신성한 운명의 더 높은 이 현상들이 솟아나야 하는 토양이다. 진화하는 혼이라는 토양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정신과 영이 합쳐진 이 피조물의 운명은 영적이고 신성하다.”

바로 이날 저녁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대답했다:

“초기에 **히브리** 선지자들이 **아버지**를 어렵게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게 됐으니, 그런 질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너희는,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려 했는지 잘 안다. 모든 자연 발생에서, 그리고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특이한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 그들은 선과 악, 양쪽을 **하나님께** 연관시켰다. **하나님이 모세**의 심성을 온화하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도록 강하게 충동되면, 이런 이례적 감정에 대해: “**주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 아니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지독하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선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벌주시며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려는 습성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너희는 그 이상{以上}을 잘 안다. 사람이 너무 자주 이기심과 동물적 속성의 충동으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알아보는 한편, 어떻게 표현할지 찾고 있는, 영, 정신, 및 육체 에너지를, 보다 높은 경로나 좀 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지성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동물적 속성과 영적 속성 사이의 이런 무익하고 약화시키는 갈등을 거의 온전히 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변화시켜서 필사자로서 가장 높은 유형으로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인간 의지라는 단순한 힘을 통해서, 하나의 욕망을, 더 우세하다고 가정되는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어리석음에 대항하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덜 중요하고 저급한 본성의 유혹을 진정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너희가 유혹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더 낮고 덜 이상적인 행태 습관을 버리고, 너희의 정신이 대신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더 높고 좀 더 이상적인 행동 양식에 실제 관심을 정말로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를 사랑하게 된 영적 이점{利點}이 있는 곳

then, in association with that re-created mind, is to achieve the evolvment of the soul of immortal destiny. Your spirit nature — the jointly created soul — is a living growth, but the mind and morals of the individual are the soil from which these higher manifestations of human development and divine destiny must spring. The soil of the evolving soul is human and material, but the destiny of this combined creature of mind and spirit is spiritual and divine.”

156:5.3 (1738.2) On the evening of this same day Nathaniel asked Jesus: “Master, why do we pray that God will lead us not into temptation when we well know from your revelation of the Father that he never does such things?” Jesus answered Nathaniel:

156:5.4 (1738.3) “It is not strange that you ask such questions seeing that you are beginning to know the Father as I know him, and not as the early Hebrew prophets so dimly saw him. You well know how our forefathers were disposed to see God in almost everything that happened. They looked for the hand of God in all natural occurrences and in every unusual episode of human experience. They connected God with both good and evil. They thought he softened the heart of Moses and hardened the heart of Pharaoh. When man had a strong urge to do something, good or evil, he was in the habit of accounting for these unusual emotions by remarking: ‘The Lord spoke to me saying, do thus and so, or go here and there.’ Accordingly, since men so often and so violently ran into temptation, it became the habit of our forefathers to believe that God led them thither for testing, punishing, or strengthening. But you, indeed, now know better. You know that men are all too often led into temptation by the urge of their own selfishness and by the impulses of their animal natures. When you are in this way tempted, I admonish you that, while you recognize temptation honestly and sincerely for just what it is, you intelligently redirect the energies of spirit, mind, and body, which are seeking expression, into higher channels and toward more idealistic goals. In this way may you transform your temptations into the highest types of uplifting mortal ministry while you almost wholly avoid these wasteful and weakening conflicts between the animal and spiritual natures.

156:5.5 (1738.4) “But let me warn you against the folly of undertaking to surmount temptation by the effort of supplanting one desire by another and supposedly superior desire through the mere force of the human will. If you would be truly triumphant over the temptations of the lesser and lower nature, you must come to that place of spiritual advantage where you have really and truly developed an actual interest in, and love for, those higher and more idealistic forms of conduct which your mind is desirous of substituting for these

으로 너희가 와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필사자의 욕망이라는 거짓된 억압의 무거운 짐을 점점 더 많이 지는 대신, 이런 방법으로 영적 전환을 통해서 구제될 것이다. 낡고 저급한 것은, 새로운 것과 뛰어난 것을 사랑함으로써 잊혀질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빛이 빛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추악함을 반드시 이긴다. 새롭고 진지한 영적 애정이 방출(放出)하는 에너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겠는데,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사도와 전도자들은 밤 깊을 때까지 계속 질문했고, 예수께서 하신 많은 대답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상을 현대 용어로 다시 정리했다:

원대한 야망, 지성적 판단, 그리고 체험으로 쌓은 지혜 등은, 물질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지도력은, 타고난 역량, 분별력, 의지력, 및 결단력에 달려 있다. 영적 운명은, 신앙, 사랑, 및 진리에 대한 헌신--곧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즉 **하나님**을 찾고 그와 같이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것에 달려있다.

너희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낙담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선천적으로 죄에 물든 것이 아니다. 유감스런 체험을 더러 잊으려는 데 완전히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너희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과오들이, 영원 속에서는 잊혀질 것이다. 네 운명의 원거리 관점, 즉 네 생애의 우주 확장을 신속하게 획득함으로써, 네 혼의 짐을 가볍게 해라.

정신의 불완전성이나 육체의 욕망으로 혼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단 한 번의 불행한 인간적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혼을 판단하지 말고, 그 운명을 평가하지도 말라. 영적 운명은, 오직 네가 영적으로 동경(憧憬)하는 것과 그 목적에 따라서만 좌우된다.

종교관, **하나님**을_아는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겪는 순전히 영적인 체험이지만, 도덕적 능력과 영적 에너지는, 어려운 사회 상황에 대처하고,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재능은, 어떤 수준의 인간 생활이든지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게 해 준다.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너희는 편협하고 조잡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상호적이겠지만, 신성한 사랑은 어떤 만족을_추구하든지 밖을 향해서 나아간다. 어떤 피조물의 본성에서 사랑이 부족할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신성한 사랑이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려고 더 많이 찾아 나선다. 사랑은 결코 자기_본위가 아니며, 자신에게_줄 수 없다. 신성한 사랑은 스스로_억제할 수 없으며;그

lower and less idealistic habits of behavior that you recognize as temptation. You will in this way be delivered through spiritu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be increasingly overburdened with the deceptive suppression of mortal desires. The old and the inferior will be forgotten in the love for the new and the superior. Beauty is always triumphant over ugliness in the hearts of all who are illuminated by the love of truth. There is mighty power in the expulsive energy of a new and sincere spiritual affection. And again I say to you, be not overcome by evil but rather overcome evil with good.”

156:5.6 (1739.1) Long into the night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continued to ask questions, and from the many answers we would present the following thoughts,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156:5.7 (1739.2) Forceful ambition, intelligent judgment, and seasoned wisdom are the essentials of material success. Leadership is dependent on natural ability, discretion, will power, and determination. Spiritual destiny is dependent on faith, love, and devotion to truth —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the wholehearted desire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156:5.8 (1739.3) Do not become discouraged by the discovery that you are human. Human nature may tend toward evil, but it is not inherently sinful. Be not downcast by your failure wholly to forget some of your regrettable experiences. The mistakes which you fail to forget in time will be forgotten in eternity. Lighten your burdens of soul by speedily acquiring a long-distance view of your destiny, a universe expansion of your career.

156:5.9 (1739.4) Make not the mistake of estimating the soul's worth by the imperfections of the mind or by the appetites of the body. Judge not the soul nor evaluate its destiny by the standard of a single unfortunate human episode. Your spiritual destiny is conditioned only by your spiritual longings and purposes.

156:5.10 (1739.5) Religion is the exclusively spiritual experience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of the God-knowing man, but moral power and spiritual energy are mighty forces which may be utilized in dealing with difficult social situations and in solving intricate economic problems. These moral and spiritual endowments make all levels of human living richer and more meaningful.

156:5.11 (1739.6) You are destined to live a narrow and mean life if you learn to love only those who love you. Human love may indeed be reciprocal, but divine love is outgoing in all its satisfaction-seeking. The less of love in any creature's nature, the greater the love need, and the more does divine love seek to satisfy such need. Love is never self-seeking, and it cannot be self-bestowed. Divine love cannot be self-contained; it must be

사랑은 이타적으로 남에게 줘야 한다.

천국을 믿는 자는 정의가 확실히 승리한다는 무조건적 신앙, 즉 마음에서_우리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천국을 건축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는, 경건한 교류를 가짐으로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신에게 영감을 주고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고달픈 인생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는가를--곧 물질 실존에서 괴로움 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는가를--점점 더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_아는 각 개인은, 불행이나 좌절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다. 신자는, 순전히 물질적 격변으로 초래된 우울증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영으로 사는 자는,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자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모든 변천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쾌하고 건설적인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옳은 일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적인 삶은 진정한 자존감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_찬양이 아니다. 자존감은, 동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항상 대등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전자{前者}가 후자{後者}의 능력을 재는 척도다.

모든 진정한 신자는,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도록 동료들을 인도하기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능숙하게 된다. 너는 어제보다 오늘, 인류에게 선을 드러내는 일에 더 재치 있게 됐느냐? 너는 지난해보다 올해에 정의{正義}를 권고하는 데 더 나아지고 있는가? 너는 갈급한 혼을 영적인 나라 안으로 이끄는 숨씨가 점점 더 기교 있게 되고 있는가?

땅에서 필사자 동료들과 연합하여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네 실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네 이상{理想}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됐는가? 영적으로는 네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가이사**에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진화하는 혼의 영적 수용력을 재는 척도는, 진리를 믿는 네 신앙과 사람을 향한 네 사랑이지만, 인간 성품의 힘을 재는 척도는, 악의를 품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 있는 역량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패배는, 너의 진정한 자아를 솔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정직한 거울이다.

너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국의 일을 더 많이 체험함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좀 더 요령 있게 대하고 완고한 동역자들을 관대하게 대

unselfishly bestowed.

156:5.12 (1739.7) Kingdom believers should possess an implicit faith, a whole-souled belief, in the certain triumph of righteousness. Kingdom builders must be undoubting of the truth of the gospel of eternal salvation. Believers must increasingly learn how to step aside from the rush of life — escape the harassments of material existence — while they refresh the soul, inspire the mind, and renew the spirit by worshipful communion.

156:5.13 (1739.8) God-knowing individuals are not discouraged by misfortune or downcast by disappointment. Believers are immune to the depression consequent upon purely material upheavals; spirit lovers are not perturbed by the episodes of the material world. Candidates for eternal life are practitioners of an invigorating and constructive technique for meeting all of the vicissitudes and harassments of mortal living. Every day a true believer lives, he finds it *easier* to do the right thing.

156:5.14 (1740.1) Spiritual living mightily increases true self-respect. But self-respect is not self-admiration. Self-respect is always co-ordinate with the love and service of one's fellows. It is not possible to respect yourself more than you love your neighbor; the one is the measure of the capacity for the other.

156:5.15 (1740.2) As the days pass, every true believer becomes more skillful in alluring his fellows into the love of eternal truth. Are you more resourceful in revealing goodness to humanity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Are you a better righteousness recommender this year than you were last year? Are you becoming increasingly artistic in your technique of leading hungry souls into the spiritual kingdom?

156:5.16 (1740.3) Are your ideals sufficiently high to insure your eternal salvation while your ideas are so practical as to render you a useful citizen to function on earth in association with your mortal fellows? In the spirit, your citizenship is in heaven; in the flesh, you are still citizens of the earth kingdoms. Render to the Caesars the things which are material and to God those which are spiritual.

156:5.17 (1740.4) The measure of the spiritual capacity of the evolving soul is your faith in truth and your love for man, but the measure of your human strength of character is your ability to resist the holding of grudges and your capacity to withstand brooding in the face of deep sorrow. Defeat is the true mirror in which you may honestly view your real self.

156:5.18 (1740.5) As you grow older in years and more experienced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are you becoming more tactful in dealing with troublesome

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요령은 사회라는 지렛대의 받침이고, 아량은 위대한 혼을 소유하는 자의 표식이다. 네가 이런 진귀하고 매력적인 은사(恩賜)를 갖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를 좀 더 민첩하고 능숙하게 피하기 위한 값진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실히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런 현명한 혼은 많이 피할 수 있다.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 네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부정직함과 불공정함을 피하라. 부당하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터무니 없는 동정을 구하지도 말아라.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에 상관없이, 신성한 근원과 인간적 근원 양쪽으로부터 아낌없이 사랑받고, 그 답례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라. 그러나 명예와 찬사(讚辭)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에서는 네게 속한 것만 정직하게 구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는, 반드시 구원을 확신하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용감하게 참아내는 방법을 알며; 또한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자는,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않는다. 어려움은 오히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을 자극하며, 장애물은 담대하게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분발을 촉구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로**를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가르쳤다.

갈릴리 해안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로**를 떠나기 전날, **예수**께서는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열두 사도가 가는 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열두 전도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와 헤어진 후, 전도자들은 그렇게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를 다시는 갖지 못했다.

6.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7월 24일 일요일 정오 무렵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두로**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을 떠나서, 해안을 따라 **프톨레마이오스**로 내려갔다. 그들은 여기에 하루 머물면서, 거기에 사는 신자들 일행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7월 25일 저녁에 그들에게 설교했다.

화요일에 **프톨레마이오스**를 떠나서, 그들은 **디베라** 도로를 거쳐 **오타파타** 가까운 곳까지 내륙의 동쪽으로 갔다. 수요일에 **오타파타**에 도착해서, 그 곳의 신자들에게 천국의 일에 대해 많이 가르쳤다. 목요일에 **오타파타**를 떠났고, **나사렛 산**

mortals and more tolerant in living with stubborn associates? Tact is the fulcrum of social leverage, and tolerance is the earmark of a great soul. If you possess these rare and charming gifts, as the days pass you will become more alert and expert in your worthy efforts to avoid all unnecessary social misunderstandings. Such wise souls are able to avoid much of the trouble which is certain to be the portion of all who suffer from lack of emotional adjustment, those who refuse to grow up, and those who refuse to grow old gracefully.

156:5.19 (1740.6) Avoid dishonesty and unfairness in all your efforts to preach truth and proclaim the gospel. Seek no unearned recognition and crave no undeserved sympathy. Love, freely receive from both divine and human sources regardless of your deserts, and love freely in return. But in all other things related to honor and adulation seek only that which honestly belongs to you.

156:5.20 (1740.7) The God-conscious mortal is certain of salvation; he is unafraid of life; he is honest and consistent. He knows how bravely to endure unavoidable suffering; he is uncomplaining when faced by inescapable hardship.

156:5.21 (1740.8) The true believer does not grow weary in well-doing just because he is thwarted. Difficulty whets the ardor of the truth lover, while obstacles only challenge the exertions of the undaunted kingdom builder.

156:5.22 (1740.9) And many other things Jesus taught them before they made ready to depart from Tyre.

156:5.23 (1740.10) The day before Jesus left Tyre for the return to the region of the Sea of Galilee, he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directed the twelve evangelists to go back by a route different from that which he and the twelve apostles were to take. And after the evangelists here left Jesus, they were never again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him.

6. THE RETURN FROM PHOENICIA

156:6.1 (1741.1) About noon on Sunday, July 24, Jesus and the twelve left the home of Joseph, south of Tyre, going down the coast to Ptolemais. Here they tarried for a day, speaking words of comfort to the company of believers resident there. Peter preached to them on the evening of July 25.

156:6.2 (1741.2) On Tuesday they left Ptolemais, going east inland to near Jotapata by way of the Tiberias road. Wednesday they stopped at Jotapata and instructed the believers further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Thursday they left Jotapata,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라마**를 거쳐 **스블론**이라는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금요일에 **라마**에서 모임을 가졌고 **안식일**을 거기서 보냈다. 그들이 **스블론**에 도착한 것은 31일 일요일이었으며, 거기서 그날 저녁 모임을 가졌고, 이튿날 아침에 떠났다.

그들은 **스블론**을 떠나서 **가이사라** 근처 **막달라_시돈** 도로와 만나는 곳을 넘어 여행했고, 그다음에 **가버나움** 남쪽인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갔으며, 거기서 **다윗 세베대**와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해 거기서 상의할 작정이었다.

다윗과 잠시 협의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지도자가 **케레사** 근처 호수 반대편에 모여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바로 그날 밤에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그들은 하루 동안 언덕에서 조용히 쉬었고, 다음 날에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인 적이 있었던 근처의 공원으로 갔으며, 여기서 3일간 쉬면서 매일 협의를 했는데, 약 50명의 남녀가 참석했고, 이들은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한때 많은 숫자였던 신자 일행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떠나 **페니키아**에 머무는 동안에, 적들은, 그 운동 전부가 와해됐으며, **예수**께서 서둘러 떠난 것은 그가 너무 겁먹었기 때문이므로, 다시는 자기네를 성가시게 하려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교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거의 조용해졌다. 신자들은 한 번 더 공공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방금 통과했던 큰 난관에서 시험을 받고 진실로 살아남은 자들의,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단합이 거기서 이뤄지고 있었다.

헤롯의 형제 **빌립**은 **예수**를 반신반의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님**이 자유롭게 살면서 일해도 좋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모든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와 추종자들의 가르침을 금한다는 명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었다. 논쟁의 대상인 **예수**께서 스스로 사라지자마자 전 **유대인** 가운데서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지도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노였다.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선생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회당을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에게 은밀히 개방하기 시작했다.

going north on the Nazareth-Mount Lebanon trail to the village of Zebulun, by way of Ramah. They held meetings at Ramah on Friday and remained over the Sabbath. They reached Zebulun on Sunday, the 31st, holding a meeting that evening and departing the next morning.

156:6.3 (1741.3) Leaving Zebulun, they journeyed over to the junction with the Magdala-Sidon road near Gischala, and thence they made their way to Gennesaret on the western shores of the lake of Galilee, south of Capernaum, where they had appointed to meet with David Zebedee, and where they intended to take counsel as to the next move to be made in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156:6.4 (1741.4) During a brief conference with David they learned that many leaders were then gathered together on the opposite side of the lake near Kheresa, and accordingly, that very evening a boat took them across. For one day they rested quietly in the hills, going on the next day to the park, near by, where the Master once fed the five thousand. Here they rested for three days and held daily conferences, which were attended by about fifty men and women, the remnants of the once numerous company of believers resident in Capernaum and its environs.

156:6.5 (1741.5) While Jesus was absent from Capernaum and Galilee, the period of the Phoenician sojourn, his enemies reckoned that the whole movement had been broken up and concluded that Jesus' haste in withdrawing indicated he was so thoroughly frightened that he would not likely ever return to bother them. All active opposition to his teachings had about subsided. The believers were beginning to hold public meetings once more, and there was occurring a gradual but effective consolidation of the tried and true survivors of the great sifting through which the gospel believers had just passed.

156:6.6 (1741.6) Philip, the brother of Herod, had become a halfhearted believer in Jesus and sent word that the Master was free to live and work in his domains.

156:6.7 (1741.7) The mandate to close the synagogues of all Jewry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all his followers had worked adversely upon the scribes and Pharisees. Immediately upon Jesus' removing himself as an object of controversy, there occurred a reaction among the entire Jewish people; there was general resentment against the Pharisees and the Sanhedrin leaders at Jerusalem. Many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s began surreptitiously to open their synagogues to Abner and his associates, claiming that these teachers were followers of John and not disciples of Jesus.

헤롯 안티파스조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호수 반대편에 있는 형제 **빌립**의 관할 안에 **예수**께서 머물고 있음을 알자, 자신이 **갈릴리**에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에 서명하긴 했지만, **펠라**에서의 체포는 위임하지 않았기에, 그가 **갈릴리** 외부에 머물고 있는 한, 자기로서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내왔으며;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 판결문을 전달했다.

이상이 서기 29년 8월초까지의 상황이었는 데, 이때는 **예수**께서 **페니키아**에서 전도하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 세상 사명에서 마지막이자 중요한 1년을 위해, 흠어지고 시험받고 지친 무리를 재조직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새 종교, 즉 사람들의 정신에 내주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종교를, **주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선언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그 싸움의 명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156:6.8 (1741.8) Even Herod Antipas experienced a change of heart and, on learning that Jesus was sojourning across the lake in the territory of his brother Philip, sent word to him that, while he had signed warrants for his arrest in Galilee, he had not so authorized his apprehension in Perea, thus indicating that Jesus would not be molested if he remained outside of Galilee; and he communicated this same ruling to the Jews at Jerusalem.

156:6.9 (1742.1) And that was the situation about the first of August, A.D. 29, when the Master returned from the Phoenician mission and began the reorganization of his scattered, tested, and depleted forces for this last and eventful year of his mission on earth.

156:6.10 (1742.2) The issues of battle are clearly drawn as the Master and his associates prepare to begin the proclamation of a new religion, the religion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who dwells in the minds of men.

제157편. 가이사라_빌립보에서

⇨ 156

유랜시아 책

158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57편
가이사라_빌립보에서

섹션

소개

1. 성전_세금 징수원
2. 벳새다_유리아에서
3. 베드로의 고백
4. 천국에 관한 강의
5. 새로운 개념
6. 다음 날 오후
7. 안드레의 의논

PAPER 157
AT CAESAREA-PHILIPPI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emple-Tax Collector
2. At Bethsaida-Julias
3. Peter's Confession
4. The Talk about the Kingdom
5. The New Concept
6. The Next Afternoon
7. Andrew's Conference

소개

열두 사도와 함께 **가이사라_빌립보** 근방에 잠시 체류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가족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8월 7일 일요일에 **다윗**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번에는, 배 만드는 **세베대**의 목공소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준비했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동생 **유다**와 **나사렛**의 모든 식구--곧 **마리아**와 **예수**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마리아**와 자녀들은 이 약속을 꼭 지키려 했지만, **예수**께서 **빌립**의 관할 지역인 호수 건너편에 있음을 알게 된 한 무리의 **바리새인**이, **예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밀정{密偵}들이 도착하자 매우 불안했으며, 이들은 **예수**의 가족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가족을 방문하기로 돼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지원부대를 요청해 놓고, **예수**께서 도착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태가, **예수**와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를 가족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하루 동안, **바리새인**의 감시를 피해 **예수**께 전갈을 보내려고 **유다**와 **룻**이 애썼지만

INTRODUCTION

157:0.1 (1743.1) BEFORE Jesus took the twelve for a short sojourn in the vicinity of Caesarea-Philippi, he arranged through the messengers of David to go over to Capernaum on Sunday, August 7, for the purpose of meeting his family. By prearrangement this visit was to occur at the Zebedee boatshop. David Zebedee had arranged with Jude, Jesus' brother, for the presence of the entire Nazareth family — Mary and all of Jesus' brothers and sisters — and Jesus went with Andrew and Peter to keep this appointment. It was certainly the intention of Mary and the children to keep this engagement, but it so happened that a group of the Pharisees, knowing that Jesus wa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lake in Philip's domains, decided to call upon Mary to learn what they could of his whereabouts. The arrival of these Jerusalem emissaries greatly perturbed Mary, and noting the tension and nervousness of the entire family, they concluded that Jesus must have been expected to pay them a visit. Accordingly they installed themselves in Mary's home and, after summoning reinforcements, waited patiently for Jesus' arrival. And this, of course, effectively prevented any of the family from attempting to

성공하지 못했다.

오후 일찍, **바리새인**이 **마리아**의 집 현관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예수**께 가져왔으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예수**와 그 가족은, 어느 편에도 잘못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됐다.

1. 성전_세금 징수원

예수께서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배 목공소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본 한 성전_세금 징수원이 그들에게 와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며 말했다: “네 **주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적들의 종교 활동 유지에 **예수**도 공헌하기를 기대하는 그의 제안을 듣고 화를 내려 했지만, 그 세금 징수원의 얼굴에 나타난 묘한 표정을 보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성전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관례대로 지불하는 반 세겔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정확히 추측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답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전 세금을 내신다. 당신이 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세금을 갖고 돌아오겠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 그들의 자금은 **유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는 호수 건너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 그리고 **예수**께도 돈이 전혀 없었다. **바리새인**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가지러 **벳새다**로 갈 수도 없었다. 세금 징수원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가 약속했다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네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어부 일을 하겠느냐? **베드로**야, 어쨌든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우리 태도에 대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동안, 네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세 명 몫의 세금을 그 징수원에게 줘라.”

가까이 서있던 **다윗**의 비밀 심부름꾼이 이 모든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는 해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한 동역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몇 개의 큰 바구니를 **다윗**의 심부름꾼과 친구 어부가 그에게 줬으며, 그들은 그를 도와서 근처에 있는 물고기 상인에게 가져다가 팔았고, **다윗**의 심부름꾼이 보태서, 세 명에 해당되는 성전 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준비했다. 세금 징수원은, **예수**의 일행이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늦게

keep their appointment with Jesus. Several times during the day both Jude and Ruth endeavored to elude the vigilance of the Pharisees in their efforts to send word to Jesus, but it was of no avail.

157:0.2 (1743.2) Early in the afternoon David's messengers brought Jesus word that the Pharisees were encamped on the doorstep of his mother's house, and therefore he made no attempt to visit his family. And so again, through no fault of either, Jesus and his earth family failed to make contact.

1. THE TEMPLE-TAX COLLECTOR

157:1.1 (1743.3) As Jesus, with Andrew and Peter, tarried by the lake near the boatshop, a temple-tax collector came upon them and, recognizing Jesus, called Peter to one side and said: “Does not your Master pay the temple tax?” Peter was inclined to show indignation at the suggestion that Jesus sh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religious activities of his sworn enemies, but, noting a peculiar expression on the face of the tax collector, he rightly surmised that it was the purpose to entrap them in the act of refusing to pay the customary half shekel for the support of the temple services at Jerusalem. Accordingly, Peter replied: “Why of course the Master pays the temple tax. You wait by the gate, and I will presently return with the tax.”

157:1.2 (1743.4) Now Peter had spoken hastily. Judas carried their funds, and he was across the lake. Neither he, his brother, nor Jesus had brought along any money. And knowing that the Pharisees were looking for them, they could not well go to Bethsaida to obtain money. When Peter told Jesus about the collector and that he had promised him the money, Jesus said: “If you have promised, then should you pay. But wherewith will you redeem your promise? Will you again become a fisherman that you may honor your word? Nevertheless, Peter, it is well in the circumstances that we pay the tax. Let us give these men no occasion for offense at our attitude. We will wait here while you go with the boat and cast for the fish, and when you have sold them at yonder market, pay the collector for all three of us.”

157:1.3 (1744.1) All of this had been overheard by the secret messenger of David who stood near by, and who then signaled to an associate, fishing near the shore, to come in quickly. When Peter made ready to go out in the boat for a catch, this messenger and his fisherman friend presented him with several large baskets of fish and assisted him in carrying them to the fish merchant near by, who purchased the catch, paying sufficient, with what was added by the messenger of David, to meet the temple tax for the three. The collector accepted the tax, foregoing the penalty for tardy

납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세금을 받았다.

베드로가 돈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당시에는 물고기 입에서 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흔했으며; 기록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흔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떠나 배 있는 곳으로 갈 때, **예수**께서 반_농담조로 말씀했다: “왕의 아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니, 이상하구나; 국가의 유지를 위해 대개 세금 내는 사람은 타인들인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라! 아마 네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을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성전 세금을 갖고 나타났으므로,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나중에 하나의 기적으로 확대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해가 거의 질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렸다. 심부름꾼들은 **마리아**의 집이 아직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으며;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기다리던 세 사람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을 향해서 천천히 노를 저었다.

2. 벳새다_유리아에서

8월 8일 월요일에, **예수**와 열두 사도가 **벳새다_유리아** 가까이 있는 **마가단 공원**에 머물고 있을 때, 100명 이상의 신자, 전도자, 여자 단체, 그리고 천국의 건설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협의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바리새인** 역시 이곳으로 왔다. 이 무렵에, 일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결합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신자들과의 비공개 협의를 하기 전에 **바리새인**도 참석한 공중 모임을 가졌고, 그들은 **예수**께 야유를 퍼붓거나 집회를 방해하려고 애썼다. 방해꾼들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에게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바라며,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이 나타난 후에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녁이 됐을 때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이 좋을 것이라 하고; 아침이 됐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궂을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타는 듯한 더위가 올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은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토록 완전히 분별치 못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 악한_마음을 지닌 위선적인 세대는 아무 표적도 얻지 못할 것이다.”

payment because they had been for some time absent from Galilee.

157:1.4 (1744.2) It is not strange that you have a record of Peter's catching a fish with a shekel in its mouth. In those days there were current many stories about finding treasures in the mouths of fishes; such tales of near miracles were commonplace. So, as Peter left them to go toward the boat, Jesus remarked, half-humorously: "Strange that the sons of the king must pay tribute; usually it is the stranger who is taxed for the upkeep of the court, but it behooves us to afford no stumbling block for the authorities. Go hence! maybe you will catch the fish with the shekel in its mouth." Jesus having thus spoken, and Peter so soon appearing with the temple tax,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episode became later expanded into a miracle as recorded by the writer of Matthew's Gospel.

157:1.5 (1744.3) Jesus, with Andrew and Peter, waited by the seashore until nearly sundown. Messengers brought them word that Mary's house was still under surveillance; therefore, when it grew dark, the three waiting men entered their boat and slowly rowed away toward the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2. AT BETHSAIDA-JULIAS

157:2.1 (1744.4) On Monday, August 8, while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ere encamped in Magadan Park, near Bethsaida-Julias, more than one hundred believers, the evangelists, the women's corp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came over from Capernaum for a conference. And many of the Pharisees, learning that Jesus was here, came also. By this time some of the Sadducees were united with the Pharisees in their effort to entrap Jesus. Before going into the closed conference with the believers, Jesus held a public meeting at which the Pharisees were present, and they heckled the Master and otherwise sought to disturb the assembly. Said the leader of the disturbers: "Teacher, we would like you to give us a sign of your authority to teach, and then, when the same shall come to pass, all men will know that you have been sent by God." And Jesus answered them: "When it is evening,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heaven is red; in the morning it will be foul weather, for the heaven is red and lowering.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you say showers will come; when the wind blows from the south, you say scorching heat will come. How is it that you so well know how to discern the face of the heavens but are so utterly unable to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To those who would know the truth, already has a sign been given; but to an evil-minded and hypocritical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한 후에, 물러가서 추종자들과 가질 저녁 회담 준비를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정된 **가이사라_빌립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합동 전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주님께서 **데가볼리** 전도활동을 계획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많이 아는 척하고 종교 형식에 그들의 깊은 충성심을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과 참된 종교의 능력에만 관심을 뒤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죽은 종교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너희의 신앙이다. 편견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눈멀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마비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해심을 왜곡시켜서,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전통을 숭배하지 말아라. 단지 평화를 제시하는 것은 참 종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를 보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실체들의 이상{理想}인 진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마음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정신 속에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곧 일생의 죄 많은 쾌락이 영원성의 올바른 실체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신앙과 희망으로 새로운 삶에 임하면서, 지금도 너희는 두려움과 의심의 족쇄에서 해방되기를 구하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감정이 너희의 혼 속에 생겨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면, 동료들의 진정한 필요에 영리하게 봉사함으로 그런 애정의 충동을 표현해라.”

3. 베드로의 고백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을 떠나서 **가이사라_빌립보**로 향했는데, 그 도시는 **영주**{領主}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의 수도였다. **가이사라_빌립보**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했다. 이 도시는, **요단강**이 지하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경치 좋은 언덕 사이의 매력적인 계곡에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정상에 한 눈에 들어오고, 언덕 남쪽으로는 **요단강** 상류와 **갈릴리 바다**의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정세를 체득하던 초기에 **헤르몬 산**에 가본 적이 있었으며, 그의 업무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 시련과 승리의 산에 다시 가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곧 다가올 고된 시기를 대비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걷다가 **메루**

generation no sign shall be given.”

157:2.2 (1745.1)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withdrew and prepared for the evening conference with his followers. At this conference it was decided to undertake a united mission throughout all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as soon as Jesus and the twelve should return from their proposed visit to Caesarea-Philippi. The Master participated in planning for the Decapolis mission and, in dismissing the company, said: “I say to you,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Be not deceived by their show of much learning and by their profound loyalty to the forms of religion. Be only concerned with the spirit of living truth and the power of true religion. It is not the fear of a dead religion that will save you but rather your faith in a living experience in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Do not allow yourselves to become blinded by prejudice and paralyzed by fear. Neither permit reverence for the traditions so to pervert your understanding that your eyes see not and your ears hear not. It is not the purpose of true religion merely to bring peace but rather to insure progress. And there can be no peace in the heart or progress in the mind unless you fall wholeheartedly in love with truth, the ideals of eternal realities. The issues of life and death are being set before you — the sinful pleasures of time against the righteous realities of eternity. Even now you should begin to find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fear and doubt as you enter upon the living of the new life of faith and hope. And when the feelings of service for your fellow men arise within your soul, do not stifle them; when the emotions of love for your neighbor well up within your heart, give expression to such urges of affection in intelligent ministry to the real needs of your fellows.”

3. PETER'S CONFESSION

157:3.1 (1745.2) Early Tuesday morning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left Magadan Park for Caesarea-Philippi, the capital of the Tetrarch Philip's domain. Caesarea-Philippi was situated in a region of wondrous beauty. It nestled in a charming valley between scenic hills where the Jordan poured forth from an underground cave. The heights of Mount Hermon were in full view to the north, while from the hills just to the south a magnificent view was had of the upper Jordan and the Sea of Galilee.

157:3.2 (1745.3) Jesus had gone to Mount Hermon in his early experience with the affairs of the kingdom, and now that he was entering upon the final epoch of his work, he desired to return to this mount of trial and triumph, where he hoped the apostles might gain a new vis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acquire new strength for the

샘들 근처를 지날 즈음에,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최근에 **페니키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한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에 대해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을 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열두 사도에게 그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자신에 관한 질문을 처음으로 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다

예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본질과 성질을 여러 달에 걸쳐 가르쳐 왔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본성에 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 그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만 할 시기가 왔음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뿔나무 아래 자리 잡고 앉아,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과 오래 교제하던 중에 가장 중대한 수업을 제시하려고 준비했다.

사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 또는 매우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적들조차 그가 마귀들의 두목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기소장을 씌으로써,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 사람이, 그를 죽였다가 살아 난 **세례 요한**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여러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그를 **모세**, **엘리아**, **예레미야**와 비교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보고를 다 듣고 난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주변에 반원(半圓)을 그리고 앉아있는 열두 사도를 내려다보면서, 팔을 들어 압도하는 듯한 태도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놀랄 만큼 강조하여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열두 사도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다: “당신은 **구원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앉아 있던 열한 명의 나머지 제자도, **베드로**가 자신을 대신해서 말했다고 동의하는 표시로, 동시에 똑바로 일어섰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지시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선 채로 말씀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제 나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너희는 당분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여행을 다시 계속했으며,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던 **셀서스**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들은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천국 업무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trying times just ahead. As they journeyed along the way, about the time of passing south of the Waters of Merom, the apostles fell to talking among themselves about their recent experiences in Phoenicia and elsewhere and to recounting how their message had been received, and how the different peoples regarded their Master.

157:3.3 (1745.4) As they paused for lunch, Jesus suddenly confronted the twelve with the first question he had ever addressed to them concerning himself. He asked this surprising question, “Who do men say that I am?”

157:3.4 (1746.1) Jesus had spent long months in training these apostles as t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well knew the time had come when he must begin to teach them more about his own nature and his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kingdom. And now, as they were seated under the mulberry trees, the Master made ready to hold one of the most momentous sessions of his long association with the chosen apostles.

157:3.5 (1746.2) More than half the apostles participated in answering Jesus' question. They told him that he was regarded as a prophet or as an extraordinary man by all who knew him; that even his enemies greatly feared him, accounting for his powers by the indictment that he was in league with the prince of devils. They told him that some in Judea and Samaria who had not met him personally believed he was John the Baptist risen from the dead. Peter explained that he had been, at sundry times and by various persons, compared with Moses, Elijah, Isaiah, and Jeremiah.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is report, he drew himself upon his feet, and looking down upon the twelve sitting about him in a semicircle, with startling emphasis he pointed to them with a sweeping gesture of his hand and asked, “But who say you that I am?” There was a moment of tense silence. The twelve never took their eyes off the Master, and then Simon Peter, springing to his feet, exclaimed: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the eleven sitting apostles arose to their feet with one accord, thereby indicating that Peter had spoken for all of them.

157:3.6 (1746.3) When Jesus had beckoned them again to be seated, and while still standing before them, he said: “This has been revealed to you by my Father. The hour has come when you should know the truth about me. But for the time being I charge you that you tell this to no man. Let us go hence.”

157:3.7 (1746.4) And so they resumed their journey to Caesarea-Philippi, arriving late that evening and stopping at the home of Celsus, who was expecting them. The apostles slept little that night; they seemed to sense that a great event in their lives and in the work of the kingdom had

transpired.

4. 천국에 관한 강의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일과,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래, 사도들은 여러 경우에 사실상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들 중에서 더러는, 그가 기대되던 **구원주**임을 짧은 기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길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의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고 실망스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돈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정신 속에 간직하며 고대해 온 여러 **메시아** 개념, 그리고 그들이 마음 속에 간직했던 이 특별한 사람과의 특별한 교제에서 오는 체험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셀서스**의 집 뜰에 모인 것은 이 수요일 늦은 오전이었다. 지난 밤 내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로 계속,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은, **예수**를 단순한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서,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형제들을 이끌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다. 이 두 **시몬**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거의 일치하게 됐으며,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도 자신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많이 애썼다. **안드레**가 사도 단체의 총괄_지휘자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동생 **시몬 베드로**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점점 열두 사도의 대변인이 돼 갔다.

주님께서 정오 무렵에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위엄을 갖춘 엄숙한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께서 다가오자 모두 일어섰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그 긴장을 완화시켰는데, 그런 미소는, 추종자들이 그들 자신을, 또는 그들 자신에 관련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내 보이는 그의 특질이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앉으라고 손짓으로 지시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나올 때 다시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외형적 존경의 표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다가 올 **데가볼리**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공포에 너희가 동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결정에 변함없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열두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몇 걸음 나와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4. THE TALK ABOUT THE KINGDOM

157:4.1 (1746.5) Since the occasions of Jesus' baptism by John and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at Cana, the apostles had, at various times, virtually accepted him as the Messiah. For short periods some of them had truly believed that he was the expected Deliverer. But hardly would such hopes spring up in their hearts than the Master would dash them to pieces by some crushing word or disappointing deed. They had long been in a state of turmoil due to conflict between the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which they held in their minds and the experience of their extraordinary association with this extraordinary man which they held in their hearts.

157:4.2 (1746.6) It was late forenoon on this Wednesday when the apostles assembled in Celsus' garden for their noontime meal. During most of the night and since they had arisen that morning,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had been earnestly laboring with their brethren to bring them all to the point of the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Master, not merely as the Messiah, but also as the divine Son of the living God. The two Simons were well-nigh agreed in their estimate of Jesus, and they labored diligently to bring their brethren around to the full acceptance of their views. While Andrew continued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apostolic corps, his brother, Simon Peter, was becoming, increasingly and by common consent, the spokesman for the twelve.

157:4.3 (1747.1) They were all seated in the garden at just about noon when the Master appeared. They wore expressions of dignified solemnity, and all arose to their feet as he approached them. Jesus relieved the tension by that friendly and fraternal smile which was so characteristic of him when his followers took themselves, or some happening related to themselves, too seriously. With a commanding gesture he indicated that they should be seated. Never again did the twelve greet their Master by arising when he came into their presence. They saw that he did not approve of such an outward show of respect.

157:4.4 (1747.2) After they had partaken of their meal and were engaged in discussing plans for the forthcoming tour of the Decapolis, Jesus suddenly looked up into their faces and said: "Now that a full day has passed since you assented to Simon Peter's declarat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I would ask if you still hold to your decision?" On hearing this, the twelve stood upon their feet, and Simon Peter, stepping a few paces forward toward Jesus, said: "Yes, Master, we do. We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다.

예수께서 여전히 선 채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대사들이지만, 이 상황에서 단지 인간 지식으로는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너희 혼 깊은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시는 영의 통찰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 고백을 한다면, 나는 바로 이 기초 위에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를 세울 것임을 선언하려고 한다. 이 영적 실체의 반석{磐石} 위에, 내가 내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모든 악의 세력과 죄의 주인은, 신성한 영으로 이뤄진 이런 인간적 동포애에 대항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런 영 공동체로 들어가는 모든 이의 신성한 안내자와 스승이 되실 것이며, 한편 나는 이제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물질계{物質界}의 천국 열쇠들-- 곧 현세의 것들에 대한 권세, 즉 천국의 동료들로서 이 남녀 연합체가 갖는 사회적 및 경제적 기능--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재차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충성심과 정직함에 대해 신뢰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을 감당할만한 신앙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분명히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모든 희망이 명백히 파괴된 중에도 새로운 섭리시대라는 새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주님**께서는 이날부터,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바로 이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아들신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왔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된 사람은, 영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 세운, 이런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인간 벽돌이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나서, 열두 사도에게 그들끼리 언덕으로 따로 가서, 저녁식사 시간까지 지혜와 힘과 영적 안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시킨 대로 따랐다.

5. 새로운 개념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새롭고 뚜렷한 특색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신성{神性}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세례와 **가나**의 결혼식 사건이 있는 뒤로 계속 그를 **메시아**로 여겼으나, 민족의 구원자가 신성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 개념의 한 부분은 아

And Peter sat down with his brethren.

157:4.5 (1747.3) Jesus, still standing, then said to the twelve: “You are my chosen ambassadors, but I know that, in the circumstances, you could not entertain this belief as a result of mere human knowledge. This is a revelation of the spirit of my Father to your inmost souls. And when, therefore, you make this confession by the insight of the spirit of my Father which dwells within you, I am led to declare that upon this foundation will I build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Upon this rock of spiritual reality will I build the living temple of spiritual fellowship in the eternal realities of my Father’s kingdom. All the forces of evil and the hosts of sin shall not prevail against this human fraternity of the divine spirit. And while my Father’s spirit shall ever be the divine guide and mentor of all who enter the bonds of this spirit fellowship, to you and your successors I now deliver the keys of the outward kingdom — the authority over things temporal — the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of this association of men and women as fellows of the kingdom.” And again he charged them, for the time being,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that he was the Son of God.

157:4.6 (1747.4) Jesus was beginning to have faith in the loyalty and integrity of his apostles. The Master conceived that a faith which could stand what his chosen representatives had recently passed through would undoubtedly endure the fiery trials which were just ahead and emerge from the apparent wreckage of all their hopes into the new light of a new dispensation and thereby be able to go forth to enlighten a world sitting in darkness. On this day the Master began to believe in the faith of his apostles, save one.

157:4.7 (1747.5) And ever since that day this same Jesus has been building that living temple upon that same eternal foundation of his divine sonship, and those who thereby become self-conscious sons of God are the human stones which constitute this living temple of sonship erecting to the glory and honor of the wisdom and love of the eternal Father of spirits.

157:4.8 (1747.6)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directed the twelve to go apart by themselves in the hills to seek wisdom, strength, and spiritual guidance until the time of the evening meal. And they did as the Master admonished them.

5. THE NEW CONCEPT

157:5.1 (1748.1) The new and vital feature of Peter’s confession was the clear-cut recognition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of his unquestioned divinity. Ever since his baptism and the wedding at Cana these apostles had variously regarded him as the Messiah, but it was not a part of the Jewish

니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신{神}으로부터 생겨 나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며;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백에서는, **연합된 본성**, 즉 그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숭고한 사실이 더 강조됐으며,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세우리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의 합동이라는 이런 위대한 진리에 기초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를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증여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다. 추종자들은 그를 예정된 **메시아**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待望}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들의 대망에 자신을 부분적으로 맞춰 가면서, 그들의 **메시아** 개념을 그렇게 변경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거의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대담하게 셋째 계획--즉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열두 사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선언하는 것--을 펼쳐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주장해 왔으며, 사도들은 바로 이 3년 동안, 그는 대망하던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점점 더 주장해 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연합된 본성**의 개념 위에 하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뚜렷이 드러내기로, 그다음에는 그를 **메시아**로 계속 간주하려는 그들의 결정을 무시하기로 계획했다.

concept of the national deliverer that he should be *divine*. The Jews had not taught that the Messiah would spring from divinity; he was to be the “anointed one,” but hardly had they contemplated him as being “the Son of God.” In the second confession more emphasis was placed upon the *combined nature*, the supernal fact that he w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and it was upon this great truth of the union of the human nature with the divine nature that Jesus declared he would build the kingdom of heaven.

157:5.2 (1748.2) Jesus had sought to live his life on earth and complete his bestowal mission as the Son of Man. His followers were disposed to regard him as the expected Messiah. Knowing that he could never fulfill their Messianic expectations, he endeavored to effect such a modification of their concept of the Messiah as would enable him partially to meet their expectations. But he now recognized that such a plan could hardly be carried through successfully. He therefore elected boldly to disclose the third plan — openly to announce his divinity, acknowledge the truthfulness of Peter’s confession, and directly proclaim to the twelve that he was a Son of God.

157:5.3 (1748.3) For three years Jesus had been proclaiming that he was the “Son of Man,” while for these same three years the apostles had been increasingly insistent that he was the expected Jewish Messiah. He now disclos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and upon the concept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he determined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He had decided to refrain from further efforts to convince them that he was not the Messiah. He now proposed boldly to reveal to them what he *is*, and then to ignore their determination to persist in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6. 다음 날 오후

예수와 사도들은, 다음 날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었다. **마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와 형제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며, 과거에 여러 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돈을 **유다**에게 건네 줄 기금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 들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심부름꾼들에게 지시해 왔는데, 그들이 **유대지방**, **사마리아**, **갈릴리**를 통과하는 동안, 도피중인 사도들과 **주님**께 전할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예수** 일행이 **대가볼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쓰고도 남을 충분한 기금을 갖고, 그날 저녁 무렵에 이 심부름꾼들이 **벧새다**에서 돌아왔다. **마**

6. THE NEXT AFTERNOON

157:6.1 (1748.4) Jesus and the apostles remained another day at the home of Celsus, waiting for messengers to arrive from David Zebedee with fund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opularity of Jesus with the masses there occurred a great falling off in revenue. When they reached Caesarea-Philippi, the treasury was empty. Matthew was loath to leave Jesus and his brethren at such a time, and he had no ready funds of his own to hand over to Judas as he had so many times done in the past. However, David Zebedee had foreseen this probable diminution of revenue and had accordingly instructed his messengers that, as they made their way through Judea, Samaria, and Galilee, they should act as collectors of money to be forwarded to the exiled apostles and their Master. And so, by evening of

태는, 그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처분돼서 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런 다음 그 기금을 무명{無名}으로 **유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에서 새로운 시대, 즉 선생-치유자가 새롭게 생각되는 **메시아**로--곧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때의 시작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때부터 계속, **주님**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면이 나타났다. 이제부터 그의 삶의 한 가지 이상{理想}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그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관념은, 오직 그렇게 살아감으로써만 납득될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의인화된 모습을, 자기 우주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하고, 더 풍성히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째 단계는 유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원, 속성, 운명에 관하여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자아를 점차 의식하는 청소년 시절과 성인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인데,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사명에 관해 보다 분명히 납득하게 됐다. 이 둘째 단계는 그의 세례와 관련돼 발생한 계시 및 체험과 함께 끝났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체험 중에서 셋째 단계는, 세례 받은 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사역을 수행했던 시기를 거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던 시기까지였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셋째 시기는, 사도와 측근 추종자들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메시아**로 간주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기간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그가 신성을 자인{自認}한 것이었고, 육신 속에서 마지막 해에 행한 일들을 포함한다. 넷째 기간에, 추종자 대부분이 그를 여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됐다. **베드로**의 고백은, **유란시아**에 그리고 전체 우주를 위해 증여된 **아들**로서의 최상의 사역이라는 진리를 더 완전히 깨닫는, 그리고 선택된 대사들이 적어도 흐릿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은, 새로운 기간의 시작점이 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친 어떤 것, 즉: '생생하게 진보하는 기법으로 영적 본성이 성장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증{例證}했다. 그는, 후세의 추종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혼과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

this day, these messengers arrived from Bethsaida bringing funds sufficient to sustain the apostles until their return to embark upon the Decapolis tour. Matthew expected to have money from the sale of his last piece of property in Capernaum by that time, having arranged that these funds should be anonymously turned over to Judas.

157:6.2 (1749.1) Neither Peter nor the other apostles had a very adequate conception of Jesus' divinity. They little realize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 new epoch in their Master's career on earth, the time when the teacher-healer was becoming the newly conceived Messiah — the Son of God. From this time on a new note appeared in the Master's message. Henceforth his one ideal of living wa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le his one idea in teaching was to present to his universe the personification of that supreme wisdom which can only be comprehended by living it. He came that we all might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157:6.3 (1749.2) Jesus now entered upon the fourth and last stage of his human life in the flesh. The first stage was that of his childhood, the years when he was only dimly conscious of his origin, nature, and destiny as a human being. The second stage was the increasingly self-conscious years of youth and advancing manhood, during which he came more clearly to comprehend his divine nature and human mission. This second stage ended with the experiences and revelations associated with his baptism. The third stage of the Master's earth experience extended from the baptism through the years of his ministry as teacher and healer and up to this momentous hour of Peter's confession at Caesarea-Philippi. This third period of his earth life embraced the times when his apostles and his immediate followers knew him as the Son of Man and regarded him as the Messiah. The fourth and last period of his earth career began here at Caesarea-Philippi and extended on to the crucifixion. This stage of his ministry was characterized by his acknowledgment of divinity and embraced the labors of his last year in the flesh. During the fourth period, whil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still regarded him as the Messiah, he became known to the apostles as the Son of God. Peter's confessio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new period of the more complete realization of the truth of his supreme ministry as a bestowal Son on Urantia and for an entire universe, and the recognition of that fact, at least hazily, by his chosen ambassadors.

157:6.4 (1749.3) Thus did Jesus exemplify in his life what he taught in his religion: the growth of the spiritual nature by the technique of living progress. He did not place emphasis, as did his later followers, upon the incessant struggle between the

다. 오히려 영이 이 두 가지를 쉽게 이기며, 이런 지적 및 본능적 싸움 대부분을 유익하게 조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다.

한 가지 새로운 의미심장함이, 이 시점부터 모든 **예수**의 교훈에 첨가됐다. **가이사라_빌립보** 이전에는, 그가 우두머리 선생으로서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가이사라_빌립보** 이후에는, 그가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 천국의 중심인 동시에 울타리인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서 나타났으며, 한 인간으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요구됐다.

예수께서는, 선생으로서, 그다음에는 선생_치유자로서, 추종자들을 영적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待望)을,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으며;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처럼 그렇게 될 수는 결코 없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길을 모색했지만, 추종자들은 그런 모험에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증여 **아들**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했다.

따라서, 이날 **예수**께서 뜰에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선언 가운데 일부는 그들에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그들은 다른 놀라운 발표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교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신분의 책무를 담당하면서 나를 따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이 세상이 너희 **주님**에게 대했던 것보다 너희에게 더 잘 대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최상의 희생을 함으로써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내 말에 주목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들림 받으면, 그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 것이며, **아들**의 연합된 본성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오랜 세월보다 더 긴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계시됐으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신비에 관해 확실히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육체적 현존으로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

soul and the body. He rather taught that the spirit was easy victor over both and effective in the profitable reconciliation of much of this intellectual and instinctual warfare.

157:6.5 (1749.4) A new significance attaches to all of Jesus' teachings from this point on. Before Caesarea-Philippi he present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its master teacher. After Caesarea-Philippi he appeared not merely as a teacher but as the divine representative of the eternal Father, who is the center and circumference of this spiritual kingdom, and it was required that he do all this as a human being, the Son of Man.

157:6.6 (1749.5) Jesus had sincerely endeavored to lead his followers into the spiritual kingdom as a teacher, then as a teacher-healer, but they would not have it so. He well knew that his earth mission could not possibly fulfill the Messianic expectations of the Jewish people; the olden prophets had portrayed a Messiah which he could never be. He sought to establish the Father's kingdom as the Son of Man, but his followers would not go forward in the adventure. Jesus, seeing this, then elected to meet his believers part way and in so doing prepared openly to assume the role of the bestowal Son of God.

157:6.7 (1750.1) Accordingly, the apostles heard much that was new as Jesus talked to them this day in the garden. And some of these pronouncements sounded strange even to them. Among other startling announcements they listened to such as the following:

157:6.8 (1750.2) “From this time on, if any man would have fellowship with us, let him assume the obligations of sonship and follow me. And when I am no more with you, think not that the world will treat you better than it did your Master. If you love me, prepare to prove this affection by your willingness to make the supreme sacrifice.”

157:6.9 (1750.3) “And mark well my word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to, but to minister and to bestow his life as the gift for all. I declare to you that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o are lost.”

157:6.10 (1750.4) “No man in this world now sees the Father except the Son who came forth from the Father. But if the Son be lifted up, he will draw all men to himself, and whosoever believes this truth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Son shall be endowed with life that is more than age-abiding.”

157:6.11 (1750.5) “We may not yet proclaim openly that the Son of Man is the Son of God, but it has been revealed to you; wherefore do I speak boldly to you concerning these mysteries. Though I stand before you in this physical presence, I came forth from God the Father. Before Abraham was, I am. I

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아온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으며;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사람의 아들**이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 경고를 듣고 나서, 이 선언이 진리임을 너희의 신앙은 이제 납득할 수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희는 나에게 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내가 말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인데, 너희가 곧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러 나갈 때, 정말로 나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 인생의 영광을 납득하고 그 장엄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너희들만 따로 데려왔는데: 곧 인류의 가슴 속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설립하는 모험, 즉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혼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면서 나와 친구를 도모하는 신앙 모험이다.”

사도들은 힘차고 놀라운 이런 말썬에 조용히 귀 기울였으며, 어리벉벉했다. 이어서 그들은 작은 무리들로 나뉘어, **주님**의 말썬을 토론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행하라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7. 안드레의 의논

그날 저녁에, **안드레**가 각 형제들과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의논했으며, 유익하고 사기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역자와 나눴다. **안드레**는 다른 사도들과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개인적 교제를 **유다**와는 한 번도 유지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유다**가 거리낌 없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유다**의 태도를 매우 염려하게 됐으므로, 그날 밤늦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주님**께 가서 자신이 염려하는 이유를 털어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네가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기를 잘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직, 이 사도를 최대한 계속 신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는 나와 나눈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

did come forth from the Father into this world as you have known me, and I declare to you that I must presently leave this world and return to the work of my Father.”

157:6.12 (1750.6) “And now can your faith comprehend the truth of these declarations in the face of my warning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your fathers as they conceived the Messiah?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Can you believe the truth about me in the face of the fact that, though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heaven have nests, I have not where to lay my head?”

157:6.13 (1750.7) “Nevertheless, I tell you that the Father and I are one.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My Father is working with me in all these things, and he will never leave me alone in my mission, even as I will never forsake you when you presently go forth to proclaim this gospel throughout the world.

157:6.14 (1750.8) “And now have I brought you apart with me and by yourselves for a little while that you may comprehend the glory, and grasp the grandeur, of the life to which I have called you: the faith-adventure of the establishment of my Father’s kingdom in the hearts of mankind, the building of my fellowship of living association with the souls of all who believe this gospel.”

157:6.15 (1750.9) The apostles listened to these bold and startling statements in silence; they were stunned. And they dispersed in small groups to discuss and ponder the Master’s words. They had confess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but they could not grasp the full meaning of what they had been led to do.

7. ANDREW’S CONFERENCE

157:7.1 (1750.10) That evening Andrew took it upon himself to hold a personal and searching conference with each of his brethren, and he had profitable and heartening talks with all of his associates except Judas Iscariot. Andrew had never enjoyed such intimate personal association with Judas as with the other apostles and therefore had not thought it of serious account that Judas never had freely and confidentially related himself to the head of the apostolic corps. But Andrew was now so worried by Judas’s attitude that, later on that night, after all the apostles were fast asleep, he sought out Jesus and presented his cause for anxiety to the Master. Said Jesus: “It is not amiss, Andrew, that you have come to me with this matter, but there is nothing more that we can do; only go on placing the utmost confidence in this apostle. And say nothing to his brethren concerning this talk with me.”

이상의 말이 **안드레**가 **예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전부였다. **유대지방** 출신의 이 형제와, **갈릴리** 출신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유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주님**께 들은 책망으로 몇 차례 심하게 상처받았고,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실망했으며, **바리새인**으로부터 도주했을 때 창피했고, 표적을 보이려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통했으며,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의존하기를 **주님**이 거절했을 때 당황했고, 그리고 이제 요즈음에는, 바닥 난 재정 때문에 우울해졌고 어떤 때에는 낙심했다. 그리고 **유다**는 대중의 열광을 그리워했다.

다른 사도들 역시,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각자 이런 똑같은 시험과 시련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은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많이 **예수**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는데,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유대지방 출신인 **유다**는, 최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에 대해 개인적 반감을 가졌으며; 이 말쑥이 자신은 은밀히 암시했다고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여러 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도들을 그들끼리 기도하러 보내려 했을 때, **유다**는 우주의 영적 세력들과 진지한 친교를 나누는 대신 인간적 두려움에 빠졌고, 동시에 복수심의 감정을 마음 속에 숨겨두려는 불행한 성향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미묘한 의심을 계속 품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역 가운데 넷째 국면을 거기서 시작하게 돼있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참석하여, **사람의 아들**로서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고 공적인 역할을 시작할 권한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저 산 너머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거기서 하라고, 영{靈}이 내게 분부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체험할 고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내 형제들 또한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157:7.2 (1751.1) And that was all Andrew could elicit from Jesus. Always had there been some strangeness between this Judean and his Galilean brethren. Judas had been shocked by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severely hurt by the Master's rebukes on several occasions, disappointed when Jesus refused to be made king, humiliated when he fled from the Pharisees, chagrined when he refused to accept the challenge of the Pharisees for a sign, bewildered by the refusal of his Master to resort to manifestations of power, and now, more recently, depressed and sometimes dejected by an empty treasury. And Judas missed the stimulus of the multitudes.

157:7.3 (1751.2) Each of the other apostles was, in some and varying measure, likewise affected by these selfsame trials and tribulations, but they loved Jesus. At least they must have loved the Master more than did Judas, for they went through with him to the bitter end.

157:7.4 (1751.3) Being from Judea, Judas took personal offense at Jesus' recent warning to the apostles to “beware the leaven of the Pharisees”; he was disposed to regard this statement as a veiled reference to himself. But the great mistake of Judas was: Time and again, when Jesus would send his apostles off by themselves to pray, Judas, instead of engaging in sincere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indulged in thoughts of human fear while he persisted in the entertainment of subtle doubts about the mission of Jesus as well as giving in to his unfortunate tendency to harbor feelings of revenge.

157:7.5 (1751.4) And now Jesus would take his apostles along with him to Mount Hermon, where he had appointed to inaugurate his fourth phase of earth ministry as the Son of God. Some of them were present at his baptism in the Jordan and had witnessed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s the Son of Man, and he desired that some of them should also be present to hear his authority for the assumption of the new and public role of a Son of God. Accordingly, on the morning of Friday, August 12, Jesus said to the twelve: “Lay in provisions and prepare yourselves for a journey to yonder mountain, where the spirit bids me go to be endowed for the finish of my work on earth. And I would take my brethren along that they may also be strengthened for the trying times of going with me through this experience.”

제158편. 변형되신 산

⇨ 157

유란시아 책

159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58편
변형되신 산

섹션

소개

1. 변형되심
2. 산에서 내려옴
3. 변형되심의 의미
4. 간질병에 걸린 소년
5. 예수께서 아이를 치유하심
6. 셀서스의 집 뜰에서
7. 베드로가 항의함
8. 베드로의 집에서

PAPER 158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ansfiguration
2. Coming down the Mountain
3. Meaning of the Transfiguration
4. The Epileptic Boy
5. Jesus Heals the Boy
6. In Celsus' Garden
7. Peter's Protest
8. At Peter's House

소개

예수와 동역자들이 **헤르몬 산** 어귀에 당도한 것은, 서기 29년 8월 12일 금요일 해질녘이었는데, 그곳은 **주님**이 **유란시아**의 영적 운명을 확립시키고, **루시퍼**의 반역을 원칙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티그랏**이라는 소년이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와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닥쳐올 사건들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 이를 동안 머물렀다.

예수께서는 대체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았고, 사도들이 모두 이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산 어귀에 머문 것은,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빨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천상의 존재들의 방문을 온전히 체험하기에는, 영적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동역자를 전부 데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마다 늘 자기를 따르게 했던 세 명에게만 동행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만이, 비록 일부분이기기는 했지만, 이 독특한 체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INTRODUCTION

158:0.1 (1752.1) IT WAS near sundown on Friday afternoon, August 12, A.D. 29, when Jesus and his associates reached the foot of Mount Hermon, near the very place where the lad Tiglath once waited while the Master ascended the mountain alone to settle the spiritual destinies of Urantia and technically to terminate the Lucifer rebellion. And here they sojourned for two days in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events so soon to follow.

158:0.2 (1752.2) In a general way, Jesus knew beforehand what was to transpire on the mountain, and he much desired that all his apostles might share this experience. It was to fit them for this revelation of himself that he tarried with them at the foot of the mountain. But they could not attain those spiritual levels which would justify their exposure to the full experience of the visitation of the celestial beings so soon to appear on earth. And since he could not take all of his associates with him, he decided to take only the three who were in the habit of accompanying him on such special vigils. Accordingly, only Peter, James, and

John shared even a part of this unique experience with the Master.

1. 변형되심

8월 15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세 사도는 **헤르몬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날은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아래서 정오에 **베드로**가 잇을 수 없는 고백을 한 지 엿새 지난 때였다.

예수께서는 이 체험이 자기가 창조한 우주와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처리사항이 육신 속에서 그의 증여에 진보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만 따로 산을 오르도록 요청 받았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바로 그 시기 동안에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방인의 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들은 정오 직전에 산 중턱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점심을 먹는 동안, **예수**께서는 세례 받은 후에 **요단**의 동쪽에 있는 언덕에서 체험했던 어떤 것을, 그 세 사도에게 간단히 이야기했으며, 또한 이 외진 은신처에 자신이 전에 방문했던 것과 관련된, **헤르몬 산**에서 체험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 더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소년 시절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언덕을 자주 올라갔고, **에스드랄론** 평원에서 여러 제국의 군대가 싸웠던 전투에 대해 꿈을 꾸곤 했으나, 이제는,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하는 연극의 종결 장면을 공연하기 위해 **요단** 평원으로 내려가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자질을 부여받으려고, **헤르몬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은 이날, **헤르몬 산**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우주 영토들에 대한 통치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낙원**에 계신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포함된, 신성한 아들신분 계층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낙원 아버지**의 당면한 뜻도 끝까지 온전히 이뤄드리기로 작정했다. 8월의 이날에 세 사도는, 그가 온전한 우주 권세로 덧입힘 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봤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도록, 천상{天上}의 사자들이 그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봤다.

사도들의 신앙은, 5천 명을 먹일 때 높은 지점에 있었으나, 곧 급속도로 줄어들어 거의 전무{全無}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자신의 신성{神性}을 인정한 결과로, 침체되던 열두 사도의 신앙은, 이어지는 몇 주에 걸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그 뒤로는 오직 점진적 쇠퇴만 체험하게 된다. 그들의 신앙이 세 번째로 소생한 것은 **주님**의 부활 후에야 이뤄졌다.

이 아름다운 오후에 세 시쯤 됐을 때, **예수**께

1. THE TRANSFIGURATION

158:1.1 (1752:3) Early on the morning of Monday, August 15, Jesus and the three apostles began the ascent of Mount Hermon, and this was six days after the memorable noontide confession of Peter by the roadside under the mulberry trees.

158:1.2 (1752:4) Jesus had been summoned to go up on the mountain, apart by himself, for the transaction of important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 of his bestowal in the flesh as this experience was related to the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extraordinary event was timed to occur while Jesus and the apostles were in the lands of the gentiles, and that it actually transpired on a mountain of the gentiles.

158:1.3 (1752:5)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about halfway up the mountain, shortly before noon, and while eating lunch, Jesus told the three apostles something of his experience in the hills to the east of Jordan shortly after his baptism and also some more of his experience on Mount Hermon in connection with his former visit to this lonely retreat.

158:1.4 (1752:6) When a boy, Jesus used to ascend the hill near his home and dream of the battles which had been fought by the armies of empires on the plain of Esdraelon; now he ascended Mount Hermon to receive the endowment which was to prepare him to descend upon the plains of the Jordan to enact the closing scenes of the drama of his bestowal on Urantia. The Master could have relinquished the struggle this day on Mount Hermon and returned to his rule of the universe domains, but he not only chos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his order of divine sonship embraced in the mandate of the Eternal Son on Paradise, but he also elected to meet the last and full measure of the present will of his Paradise Father. On this day in August three of his apostles saw him decline to be invested with full universe authority. They looked on in amazement as the celestial messengers departed, leaving him alone to finish out his earth life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158:1.5 (1753:1) The faith of the apostles was at a high point at the time of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n it rapidly fell almost to zero. Now, as a result of the Master's admission of his divinity, the lagging faith of the twelve arose in the next few weeks to its highest pitch, only to undergo a progressive decline. The third revival of their faith did not occur until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158:1.6 (1753:2) It was about three o'clock on this

서 세 사도를 떠나면서, “**아버지**와 그의 사자{使者}들과 대화하기 위해 잠시 나 혼자 가려 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사람의 아들**의 남은 중여 사명과 관련된 너희의 모든 체험에서 **아버지**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후에, **가브리엘** 및 **아버지 멜기세덱**과 긴 회담을 하기 위해 떠나있으면서, 여섯 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이 염려했음을 보자: “너희는 왜 두려워했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함을 너희도 잘 아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로써 모든 삶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기운을 내라; 나는 내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다. “우리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얼마 동안이나 더 이 산에 머물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공언한 것은 무엇이든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다.” 그리고 그들은 빨강계 달아오른 모닥불 곁에서, **루시퍼**의 반역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그날 아침에 매우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했으므로 사도들의 눈은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세 사도는 약 반 시간쯤 깊이 잠들었다가, 곁에서 탁탁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깨어났으며, **예수**께서 천상의 세계의 광채가 나오는 복장을 입은 찬란한 두 존재와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과 외모도 하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났다. 이상한 언어로 대화하는 이 세 명은 뭔가 특별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아**라고 착각했으나; 실제로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이었다. **예수**의 요청으로, 사도들이 이 광경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 통제관들이 조처했다.

세 사도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그 눈부신 광경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예수**만 홀로 서 있음을 보자, **베드로**가 맨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예수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롭지 못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로 여기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장막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혼동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은빛 구름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 네 명 위에 드리웠

beautiful afternoon that Jesus took leave of the three apostles, saying: “I go apart by myself for a season to commune with the Father and his messengers; I bid you tarry here and, while awaiting my return, pray that the Father’s will may be done in all your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the further bestowal mission of the Son of Man.” And after saying this to them, Jesus withdrew for a long conference with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not returning until about six o’clock. When Jesus saw their anxiety over his prolonged absence, he said: “Why were you afraid? You well know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wherefore do you doubt when I am not with you? I now declare that the Son of Man has chosen to go through his full life in your midst and as one of you. Be of good cheer; I will not leave you until my work is finished.”

158:1.7 (1753.3) As they partook of their meager evening meal, Peter asked the Master, “How long do we remain on this mountain away from our brethren?” And Jesus answered: “Until you shall see the glory of the Son of Man and know that whatsoever I have declared to you is true.” And they talked over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while seated about the glowing embers of their fire until darkness drew on and the apostles’ eyes grew heavy, for they had begun their journey very early that morning.

158:1.8 (1753.4) When the three had been fast asleep for about half an hour, they were suddenly awakened by a near-by crackling sound, and much to their amazement and consternation, on looking about them, they beheld Jesus in intimate converse with two brilliant beings clothed in the habiliments of the light of the celestial world. And Jesus’ face and form shone with the luminosity of a heavenly light. These three conversed in a strange language, but from certain things said, Peter erroneously conjectured that the beings with Jesus were Moses and Elijah; in reality, they were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The physical controllers had arranged for the apostles to witness this scene because of Jesus’ request.

158:1.9 (1753.5) The three apostles were so badly frightened that they were slow in collecting their wits, but Peter, who was first to recover himself, said, as the dazzling vision faded from before them and they observed Jesus standing alone: “Jesus, Master, it is good to have been here. We rejoice to see this glory. We are loath to go back down to the inglorious world. If you are willing, let us abide here, and we will erect three tent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And Peter said this because of his confusion, and because nothing else came into his mind at just that moment.

158:1.10 (1753.6) While Peter was yet speaking, a silvery cloud drew near and overshadowed the

다. 이때 너무 놀란 사도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것과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명심하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자, 예수와 세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에게 다가와서 손대며 말씀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두려워했으며; 자정이 되기 직전에 산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들 세 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2. 산에서 내려옴

산을 반쯤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 주의를 주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너희 형제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 사도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 받았다. **예수**가 **구원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다시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이었고, 방금 전에는 바로 자신의 눈으로 영광 중에 변형되신 **주님**을 봤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몹시 떨었으며--즉 생각조차 하기 싫었으며-- **야고보**나 **요한**이 이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대화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것을 찾지 못했으므로, 마음에 처음 떠오른 생각을 말했는데, “**주님**,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베드로**가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답했다.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결국 버림받는 **사람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아**가 정말로 먼저 온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엘리아**가 이미 왔고, 그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했다.” 그러자 세 사도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아**로 말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고집한다면, **요한**이 예언서의 **엘리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얻게 될 자신의 영광을 미리 맛 본 사실에 대해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한 것은,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그가 이적을 베푸는 구원자라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리라는 생각을 끼워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으로 깊이 숙고했지만,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four of them. The apostles now became greatly frightened, and as they fell down on their faces to worship, they heard a voice, the same that had spoken on the occasion of Jesus' baptism, say: “This is my beloved Son; give heed to him.” And when the cloud vanished, again was Jesus alone with the three, and he reached down and touched them, saying: “Arise and be not afraid;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is.” But the apostles were truly afraid; they were a silent and thoughtful trio as they made ready to descend the mountain shortly before midnight.

2. COMING DOWN THE MOUNTAIN

158:2.1 (1754.1) For about half the distance down the mountain not a word was spoken. Jesus then began the conversation by remarking: “Make certain that you tell no man, not even your brethre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on this mountain until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The three apostles were shocked and bewildered by the Master's words, “until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They had so recently reaffirmed their faith in him as the Deliverer, the Son of God, and they had just beheld him transfigured in glory before their very eyes, and now he began to talk about “rising from the dead”!

158:2.2 (1754.2) Peter shuddered at the thought of the Master's dying — it was too disagreeable an idea to entertain — and fearing that James or John might ask some question relative to this statement, he thought best to start up a diverting conversation and, not knowing what else to talk about, gave expression to the first thought coming into his mind, which was: “Master, why is it that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first come before the Messiah shall appear?” And Jesus, knowing that Peter sought to avoid reference to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swered: “Elijah indeed comes first to prepare the way for the Son of Man, who must suffer many things and finally be rejected. But I tell you that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received him not but did to him whatsoever they willed.” And then did the three apostles perceive that he referred to John the Baptist as Elijah. Jesus knew that, if they insisted on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then must John be the Elijah of the prophecy.

158:2.3 (1754.3) Jesus enjoined silence about their observation of the foretaste of his postresurrection glory because he did not want to foster the notion that, being now received as the Messiah, he would in any degree fulfill their erroneous concepts of a wonder-working deliverer. Although Peter, James, and John pondered all this in their minds, they spoke not of it to any man until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그들이 산을 계속 내려오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나를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의 변치 않는 결정에 따라 나를 받아들이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내 **아버지** 뜻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의지의 경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많은 실패를 체험하고, 많은 시험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너희 스스로 선택한 이 슬픔조차 이겨내게 하고, 너희를 승리로 이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변형되신 산에 올라갔던 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사도들보다 잘 준비돼서, 일어날 일을 잘 증거 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드문 특권을 누리기에 영적으로 더 적당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도 이 체험을 할 만한 자격을 영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만의 교류를 누리기 위해 홀로 있고 싶을 때마다 동행하도록 배정된 세 사도만 데리고 갔던 것이다.

3. 변형되심의 의미

변형되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목격한 것은, 그 중대한 날에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천상의 야외극{野外劇}을 잠깐 스쳐 지나가며 본 것에 불과했다. 그 변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였다:

1.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이 육신화한 증여 생애가 완성됐음을, **낙원**에 계신,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이 승인한 것이었다. **영원한 아들**의 요구조건을 고려하는 한, **예수**께서는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보증을 받았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보증을 **예수**께 전했다.

2.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유란시아**에서 증여를 완성함에 따라, **무한한 영**이 만족해하신다는 증언이었다.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 즉 **살빙톤**에 있는 **미가엘**의 가까운 동역자이자 항상 같이하는 동역자가, 이 경우에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성공했음에 관해,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사자들이 제시한 이 증언을 반갑게 받아들였지만, **아버지**께서 **유란시아** 증여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에 주목했으며;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현존만이 **예수**의 **인격화된 조울사**를 통해서 증언을 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명심하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이것은 세 사도 역시 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됐다.

이 천상의 방문이 있는 다음에, **예수**께서는

158:2.4 (1754.4) As they continued to descend the mountain, Jesus said to them: “You would not receive me as the Son of Man; therefore have I consented to be received in accordance with your settled determination, but, mistake not, the will of my Father must prevail. If you thus choose to follow the inclination of your own wills, you must prepare to suffer many disappointments and experience many trials, but the training which I have given you should suffice to bring you triumphantly through even these sorrows of your own choosing.”

158:2.5 (1754.5) Jesus did not take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up to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because they were in any sense better prepared than the other apostles to witness what happened, or because they were spiritually more fit to enjoy such a rare privilege. Not at all. He well knew that none of the twelve were spiritually qualified for this experience; therefore did he take with him only the three apostles who were assigned to accompany him at those times when he desired to be alone to enjoy solitary communion.

3. MEANING OF THE TRANSFIGURATION

158:3.1 (1755.1) That which Peter, James, and John witnessed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as a fleeting glimpse of a celestial pageant which transpired that eventful day on Mount Hermon. The transfiguration was the occasion of:

158:3.2 (1755.2) 1. The acceptance of the fullness of the bestowal of the incarnated life of Michael on Urantia by the Eternal Mother-Son of Paradise. As far as concerned the requirements of the Eternal Son, Jesus had now received assurance of their fulfillment. And Gabriel brought Jesus that assurance.

158:3.3 (1755.3) 2. The testimony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finite Spirit as to the fullness of the Urantia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 univers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the immediate associate of Michael on Salvington and his ever-present coworker, on this occasion spoke through the Father Melchizedek.

158:3.4 (1755.4) Jesus welcomed this testimony regarding the success of his earth mission presented by the messenger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but he noted that his Father did not indicate that the Urantia bestowal was finished; only did the unseen presence of the Father bear witness through Jesus' Personalized Adjuster,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give heed to him.” And this was spoken in words to be heard also by the three apostles.

158:3.5 (1755.5) After this celestial visitation Jesus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자 애썼으며,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필사자 증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변형되심의 주요 의미였다. 세 사도에게 그 변형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 생애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갔음을 표시하는 사건이었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식 방문이 있던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 곧 봉사하는 자기 **아들**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고, 우주 직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4. 간질병에 걸린 소년

예수와 동행자들이 사도 야영지에 도착한 것은, 이 화요일 아침 식사시간 직전이었다.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은 상당한 인파가 사도들 주변에 몰려있음을 발견했고, 곧 50명쯤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면서 쟁론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아홉 명의 사도와 한 무리가 포함돼 있었고, 그 무리는 **마가단**으로부터 여행할 때 **예수**와 동역자들을 따라왔던 **예루살렘** 서기관들과 믿는 제자들로 반씩 갈라져 있었다.

인파는 여러 가지로 쟁론했지만, 주된 논쟁은 **예수**를 찾아서 전날 도착했던 **디베라**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사페드의 야고보**인데, 그에게는 열네 살쯤 되는 외동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은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난당하고 있었다. 이 소년은 이 신경성 질병 외에도, 그때 지구상에 현존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떠돌아다니면서 화를 미치고 반역적인 그 중도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사로잡히게 됐으며, 그리하여 이 어린아이는 간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귀신_들려 있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이었고, 고난당하는 이 아들을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찾기 위해 거의 두 주 동안 **빌립**의 영지{領地} 서쪽 경계선을 따라서 열정을 갖고 두루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세 사도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있던 이날 정오까지도 사도 일행을 따라잡지 못했다.

예수를 찾고 있는 거의 4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홉 사도는 몹시 놀라고 심히 동요됐다. 이 무리가 도착했을 때, 아홉 사도는,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유혹--즉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지 의논하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는데; 사도 각자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 열심히 쟁론하고 있었다. 그들은 솔직히 **메시아**의 물질적 사명에 대해 오랫동안 신봉했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정말로 **구원주**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용납했으니--적어도 그의 신성{神性}에

sought to know his Father's will and decided to pursue the mortal bestowal to its natural end. This was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figuration to Jesus. To the three apostles it was an event marking the entrance of the Master upon the final phase of his earth career as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158:3.6 (1755.6) After the formal visitation of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Jesus held informal converse with these, his Sons of ministry, and communed with them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universe.

4. THE EPILEPTIC BOY

158:4.1 (1755.7) It was shortly before breakfast time on this Tuesday morning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arrived at the apostolic camp. As they drew near, they discerned a considerable crowd gathered around the apostles and soon began to hear the loud words of argument and disputation of this group of about fifty persons, embracing the nine apostles and a gathering equally divided between Jerusalem scribes and believing disciples who had tracked Jesus and his associates in their journey from Magadan.

158:4.2 (1755.8) Although the crowd engaged in numerous arguments, the chief controversy was about a certain citizen of Tiberias who had arrived the preceding day in quest of Jesus. This man, James of Safed, had a son about fourteen years old, an only child, who was severely afflicted with epilepsy. In addition to this nervous malady this lad had become possessed by one of those wandering, mischievous, and rebellious midwayers who were then present on earth and uncontrolled, so that the youth was both epileptic and demon-possessed.

158:4.3 (1755.9) For almost two weeks this anxious father, a minor official of Herod Antipas, had wandered about through the western borders of Philip's domains, seeking Jesus that he might entreat him to cure this afflicted son. And he did not catch up with the apostolic party until about noon of this day when Jesus was up on the mountain with the three apostles.

158:4.4 (1756.1) The nine apostles were much surprised and considerably perturbed when this man, accompanied by almost forty other persons who were looking for Jesus, suddenly came upon them.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is group the nine apostles, at least the majority of them, had succumbed to their old temptation -- that of discussing who should be greatest in the coming kingdom; they were busily arguing about the probable positions which would be assigned the individual apostles. They simply could not free themselves entirely from the long-cherished idea

대한 사실은 그가 인정했으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올랐던 기대감과 대망에 관한 대화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아주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사페드**의 **야고보**와 동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안드레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 다가와서 말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야고보**가 대답했다: “선한 분이시여, 나는 당신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내 아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를 **예수**께서 쫓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심하게 발작한 결과로 너무나 고난당해서 여러 번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계속 설명했다.

사도들이 듣고 있을 때,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가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으니; 당신들은 **주님**이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대사이며;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주시고, 천국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드레**와 **도마**는 이때까지 한 쪽에서 의논하고 있었다. **나다니엘**과 다른 사도들은 놀라서 지켜보았으며; 무례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시몬**과 **유다**의 갑작스런 대답성에 모두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이 속박에서 내 아이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말로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앞으로 나서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명령했다. “너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나 아이는 더 격렬하게 발작할 뿐이었고, 서기관들은 조소하면서 사도들을 조롱했으며, 실망한 신자들은 비협조적으로 비판하는 이 빈정거림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드레는 이 무분별한 수고와 참담한 실패에 깊이 통분했다. 그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려고 사도들을 따로 불렀다. 이렇게 잠시 묵상한 뒤에,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상처를 예민하게 느끼고, 자신들 모두에게 굴욕감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도, **안드레**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의 수고도 허사였다. **안드레**는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하루 더 머물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유하면서 말했다: “아마 이런 종류는 **주님**이 몸소 명령해야만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원기 넘치고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다른 아홉 형제는 혼돈과 기가 꺾인 굴욕감 속에서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낙심되고 정벌 받은 집단 같았다. 그러나 사

of the material mission of the Messiah. And now that Jesus himself had accepted their confession that he was indeed the Deliverer — at least he had admitted the fact of his divinity — what was more natural than that, during this period of separation from the Master, they should fall to talking about those hopes and ambitions which were uppermost in their hearts. And they were engaged in these discussions when James of Safed and his fellow seekers after Jesus came upon them.

158:4.5 (1756.2) Andrew stepped up to greet this father and his son, saying, “Whom do you seek?” Said James: “My good man, I search for your Master. I seek healing for my afflicted son. I would have Jesus cast out this devil that possesses my child.” And then the father proceeded to relate to the apostles how his son was so afflicted that he had many times almost lost his life as a result of these malignant seizures.

158:4.6 (1756.3) As the apostles listened,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stepped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saying: “We can heal him; you need not wait for the Master’s return. We are ambassadors of the kingdom; no longer do we hold these things in secret. Jesus is the Deliverer, and the keys of the kingdom have been delivered to us.” By this time Andrew and Thomas were in consultation at one side. Nathaniel and the others looked on in amazement; they were all aghast at the sudden boldness, if not presumption, of Simon and Judas. Then said the father: “If it has been given you to do these works, I pray that you will speak those words which will deliver my child from this bondage.” Then Simon stepped forward and, placing his hand on the head of the child, looked directly into his eyes and commanded: “Come out of him, you unclean spirit; in the name of Jesus obey me.” But the lad had only a more violent fit, while the scribes mocked the apostles in derision, and the disappointed believers suffered the taunts of these unfriendly critics.

158:4.7 (1756.4) Andrew was deeply chagrined at this ill-advised effort and its dismal failure. He called the apostles aside for conference and prayer. After this season of meditation, feeling keenly the sting of their defeat and sensing the humiliation resting upon all of them, Andrew sought, in a second attempt, to cast out the demon, but only failure crowned his efforts. Andrew frankly confessed defeat and requested the father to remain with them overnight or until Jesus’ return, saying: “Perhaps this sort goes not out except by the Master’s personal command.”

158:4.8 (1756.5) And so, while Jesus was descending the mountain with the exuberant and ecstatic Peter, James, and John, their nine brethren likewise were sleepless in their confusion and downcast humiliation. They were a dejected and

페드의 **야고보**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예수**께서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사도들로부터 듣지 못했으나, 그는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chastened group. But James of Safed would not give up. Although they could give him no idea as to when Jesus might return, he decided to stay on until the Master came back.

5. 예수께서 아이를 치유하심

5. JESUS HEALS THE BOY

예수께서 가까이 오자, 아홉 사도는 무척 안심하면서 그를 환영했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표정에서 활력과 보기 드문 열정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세 형제와 **예수**께 인사하기 위해 달려 나갔다. 그들이 인사하는 동안 인파가 다가왔고, **예수**께서 물었다: “우리가 가까이 올 때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 그러나 당황하고 낙심한 사도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고난당하는 아이를 염려하는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내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소리 지르고, 입에 거품을 쏴으며, 발작할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자주 아이를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때에는 물속으로 그리고 심지어 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를 한참 갈며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기진맥진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며; 아이의 어머니와 나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당신을 찾다가, 어제 오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따라잡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치유해주시겠습니까?”

158:5.1 (1757.1) As Jesus drew near, the nine apostles were more than relieved to welcome him, and they were greatly encouraged to behold the good cheer and unusual enthusiasm which marked the countenances of Peter, James, and John. They all rushed forward to greet Jesus and their three brethren. As they exchanged greetings, the crowd came up, and Jesus asked, “What were you disputing about as we drew near?” But before the disconcerted and humiliated apostles could reply to the Master’s question, the anxious father of the afflicted lad stepped forward and, kneeling at Jesus’ feet, said: “Master, I have a son, an only child, who i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Not only does he cry out in terror, foam at the mouth, and fall like a dead person at the time of seizure, but oftentimes this evil spirit which possesses him rends him in convulsions and sometimes has cast him into the water and even into the fire. With much grinding of teeth and as a result of many bruises, my child wastes away. His life is worse than death; his mother and I are of a sad heart and a broken spirit. About noon yesterday, seeking for you, I caught up with your disciples, and while we were waiting, your apostles sought to cast out this demon, but they could not do it. And now, Master, will you do this for us, will you heal my son?”

예수께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일어나라 명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자세히 둘러봤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앞에 서 있는 모두에게 말씀했다: “오 신앙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신앙의 효과가, 의심하면서 내리는 명령에는 반응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씀했다: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 오라.” 그리고 **야고보**가 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 오자: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당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는 심한 공격을 당해서 무리 가운데 쓰러졌고, 이를 갈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 격렬한 발작이 끝나자, 그들 앞에서 마치 죽은 아이처럼 누웠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애원하며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근심하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지

158:5.2 (1757.2)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is recital, he touched the kneeling father and bade him rise while he gave the near-by apostles a searching survey. Then said Jesus to all those who stood before him: “O faithless and perverse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ere you learn that the works of faith come not forth at the bidding of doubting unbelief?” And then, pointing to the bewildered father, Jesus said, “Bring hither your son.” And when James had brought the lad before Jesus, he asked, “How long has the boy been afflicted in this way?” The father answered, “Since he was a very young child.” And as they talked, the youth was seized with a violent attack and fell in their midst, gnashing his teeth and foaming at the mouth. After a succession of violent convulsions he lay there before them as one dead. Now did the father again kneel at Jesus’ feet while he implored the Master, saying: “If you can cure him, I beseech you to have compassion on us and deliver us from this affliction.” And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looked down into the father’s anxious face, saying: “Question not my Father’s power of

말고, 오직 네신앙의 정직성과 그 한계를 의심해 보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때 사페드의 아고보는, 신앙과 의심이 뒤섞인 오랫동안 기억될만한 말을 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앞으로 다가가서 아이를 손으로 붙잡고 말씀했다: “내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에 경의를 표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 애야, 일어나라! 불순종의 영아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아버지 손에 쥐어 주며 말씀했다: “네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네 혼의 소망을 들어주셨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심지어 **예수**의 적들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변형되신 광경과 체험으로 영적 황홀경을 맛본지 얼마 되지 않는 세 사도에게, 그것은 정말로 환상에서 깨어나, 동료 사도들이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 장면으로 신속히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천국의 이 열두 대사에게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의기양양함과 좌절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했다.

이것은 육체적 병과 영 질병의 이중적 고난에 대한 진정한 치유였다. 그리고 아이는 그 시간부터 영구히 낫게 됐다. **아고보**가 회복된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제 우리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자; 즉시 준비하라.” 그들은 남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동안 침묵했고 인파가 뒤를 따랐다.

6. 셀서스의 집 뜰에서

그들은 **셀서스**와 함께 밤을 보냈고, 저녁에는 뜰에 머물렀으며, 식사와 휴식이 끝나자 열두 사도가 **예수** 주변에 모였고, **도마**가 말했다. “**주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운이 넘쳤는지, 뒤에 남았던 우리만 모르는데, 우리의 실패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 밝힐 수 없더라도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든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하여 말씀했다: “네 형제들이 산에서 들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너희에게도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너무 어리석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겠다. 너희 **주님**과 그 동행자들, 즉 너희 형제가,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 그리고 거룩한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지혜의 재능을 더 구하기 위해 어제 저쪽 산에 올라간 동안, 남아서 이곳을 지키면서 영적 통찰력 있는 정신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아버지** 뜻이 좀 더 완전하게 계시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지시 받았던

love, only the sincerity and reach of your faith.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really believes.” And then James of Safed spoke those long-to-be-remembered words of commingled faith and doubt, “Lord, I believe. I pray you help my unbelief.”

158:5.3 (1757.3)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stepped forward and, taking the lad by the hand, said: “I will do this in accordance with my Father’s will and in honor of living faith. My son, arise! Come out of him, disobedient spirit, and go not back into him.” And placing the hand of the lad in the hand of the father, Jesus said: “Go your way. The Father has granted the desire of your soul.” And all who were present, even the enemies of Jesus, were astonished at what they saw.

158:5.4 (1757.4) It was indeed a disillusionment for the three apostles who had so recently enjoyed the spiritual ecstasy of the scenes and experiences of the transfiguration, so soon to return to this scene of the defeat and discomfiture of their fellow apostles. But it was ever so with these twelve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ey never failed to alternate between exaltation and humiliation in their life experiences.

158:5.5 (1758.1) This was a true healing of a double affliction, a physical ailment and a spirit malady. And the lad was permanently cured from that hour. When James had departed with his restored son, Jesus said: “We go now to Caesarea-Philippi; make ready at once.” And they were a quiet group as they journeyed southward while the crowd followed on behind.

6. IN CELSUS’ GARDEN

158:6.1 (1758.2) They remained overnight with Celsus, and that evening in the garden, after they had eaten and rested, the twelve gathered about Jesus, and Thomas said: “Master, while we who tarried behind still remain ignorant of what transpired up on the mountain, and which so greatly cheered our brethren who were with you, we crave to have you talk with us concerning our defeat and instruct us in these matters, seeing that those things which happened on the mountain cannot be disclosed at this time.”

158:6.2 (1758.3) And Jesus answered Thomas, saying: “Everything which your brethren heard on the mountain shall be revealed to you in due season. But I will now show you the cause of your defeat in that which you so unwisely attempted. While your Master and his companions, your brethren, ascended yonder mountain yesterday to seek for a larger knowledge of the Father’s will and to ask for a richer endowment of wisdom effectively to do that divine will, you who remained on watch here with instructions to strive to acquire

너희가, 명령함으로써 신앙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했지만, 그보다도 유혹에 굴복하여, 하늘 나라에서--곧 너희가 명상 속에서 고집하는 물질적이요 현세적인 나라에서--자신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악한 구습(舊習)에 다시 빠졌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선포함에도, 너희는 잘못된 이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너희의 신앙이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자마자, 세속에서 승진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슬며시 너희에게 임했고, 누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클 것인지에 대해 너희끼리 의논하게 됐지만, 천국에 대해 너희가 아무리 상상을 계속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적 형제관계가 이뤄진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게 돼야 하고, 그리하여 형제에게 봉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위대함은, **하나님**다운 이해심 있는 사랑에 있고, 자신을 높이는 물질적 능력 행하기를 즐기는 것에 있지 않다. 너희는 시도한 것에 아주 철저히 실패했고, 너희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다. 너희의 동기는 신성하지 않았다. 너희의 이상은 영적이지 않았다. 너희의 열정은 이타적이지 않았다. 그 과정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너희가 달성하려는 목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아버지** 뜻과 일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확립된 자연 현상의 과정을 너희가 단축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능력 없이는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일지라도, 근본적인 셋째 인간 요소, 즉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개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도 행할 수 없다. 너희가 천국의 영적 실체들에 대해 관심 가지려면, 반드시 물질적 징후가 있어야 하느냐? 유별난 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명의 영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단 말이나? 언제가 돼야, 모든 물질적 징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천국의 더 높고 영적인 실체에 너희가 충실할 것이라고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덧붙였다: "자 이제는 가서 쉬어라, 날이 새면 **마가단**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지방의 마을과 도시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관해 거기서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했던 체험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산에서 너희 형제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 각자에게도 증거 하겠는데, 이 말을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해라: **사람의 아들**은 이제 증여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간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때, 너희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엄중하고 최종적인 시험으로 곧 접어들게 될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꼭 기억하라: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

the mind of spiritual insight and to pray with us for a fuller revelation of the Father's will, failed to exercise the faith at your command but, instead, yielded to the temptation and fell into your old evil tendencies to seek for yourselves preferred places in the kingdom of heaven — the material and temporal kingdom which you persist in contemplating. And you cling to these erroneous concepts in spite of the reiterated declaration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158:6.3 (1758.4) "No sooner does your faith grasp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than your selfish desire for worldly preferment creeps back upon you, and you fall to discussing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ould b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 kingdom which, as you persist in conceiving it, does not exist, nor ever shall. Have not I told you that he who would be greatest in the kingdom of my Father's spiritual brotherhood must become little in his own eyes and thus become the server of his brethren? Spiritual greatness consists in an understanding love that is Godlike and not in an enjoyment of the exercise of material power for the exaltation of self. In what you attempted, in which you so completely failed, your purpose was not pure. Your motive was not divine. Your ideal was not spiritual. Your ambition was not altruistic. Your procedure was not based on love, and your goal of attainment was not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58:6.4 (1758.5)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learn that you cannot time-shorten the course of established natural phenomena except when such things are in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nor can you do spiritual work in the absence of spiritual power. And you can do neither of these, even when their potential is present, without the existence of that third and essential human factor,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possession of living faith. Must you always have material manifestations as an attraction for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Can you not grasp the spirit significance of my mission without the visible exhibition of unusual works? When can you be depended upon to adhere to the higher and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regardless of the outward appearance of all material manifestations?"

158:6.5 (1759.1)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twelve, he added: "And now go to your rest, for on the morrow we return to Magadan and there take counsel concerning our mission to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And in the conclusion of this day's experience, let me declare to each of you that which I spoke to your brethren on the mountain, and let these words find a deep lodgment in your hearts: The Son of Man now enters upon the last phase of the bestowal. We are about to begin those labors which shall presently lead to the great and final testing of your faith and devotion when I sha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men who seek my destruction. And

지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물러나 잠자리에 들었다. 당황했으며; 이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주님**이 말씀한 것들에 대해 어떤 것이든지 묻기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부활에 뒤따라 일어날 일들만 되새겨 왔다.

7. 베드로가 항의함

이 수요일 아침 일찍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난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새다 올리아**에서 가까운 **마가단 공원**으로 향했다. 사도들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일찍 일어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둔감한 **알패오** 쌍둥이들까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충격 받았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갔고, **메롬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쿠스** 길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서기관들 및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음을 알고,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쿠스** 길을 이용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여 그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길로 내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쫓아오고 있는 비난자들과 인파를 피해서 오직 사도들과 이날을 보내려 했다.

그들은 **갈릴리**를 통해 여행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늘 아래 멈췄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난 때였다. 식사를 마치자, **안드레**가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형제들이 당신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충분히 믿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우리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대답했다: “형제여,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증여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에게 부득이 사실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계속 고집하면서,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 장로, 및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있는 후에 죽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갑자기 닥칠 때, 너희가 잘 대처할까 하여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예수** 앞으로 뛰쳐나와서, 그

remember what I am saying to you: The Son of Man will be put to death, but he shall rise again.”

158:6.6 (1759.2) They retired for the night, sorrowful. They were bewildered;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se words. And while they were afraid to ask aught concerning what he had said, they did recall all of it subsequent to his resurrection.

7. PETER'S PROTEST

158:7.1 (1759.3) Early this Wednesday morning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Caesarea-Philippi for Magadan Park near Bethsaida-Julias. The apostles had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so they were up early and ready to go. Even the stolid Alpheus twins had been shocked by this talk about the death of Jesus. As they journeyed south, just beyond the Waters of Merom they came to the Damascus road, and desiring to avoid the scribes and others whom Jesus knew would presently be coming along after them, he directed that they go on to Capernaum by the Damascus road which passes through Galilee. And he did this because he knew that those who followed after him would go on down over the east Jordan road since they reckoned that Jesus and the apostles would fear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Herod Antipas. Jesus sought to elude his critics and the crowd which followed him that he might be alone with his apostles this day.

158:7.2 (1759.4) They traveled on through Galilee until well past the time for their lunch, when they stopped in the shade to refresh themselves. And after they had partaken of food, Andrew, speaking to Jesus, said: “Master, my brethren do not comprehend your deep sayings. We have come fully to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God, and now we hear these strange words about leaving us, about dying. We do not understand your teaching. Are you speaking to us in parables? We pray you to speak to us directly and in undisguised form.”

158:7.3 (1759.5) In answer to Andrew, Jesus said: “My brethren, it is because you have confessed that I am the Son of God that I am constrained to begin to unfold to you the truth about the end of the bestowal of the Son of Man on earth. You insist on clinging to the belief that I am the Messiah, and you will not abandon the idea that the Messiah must sit upon a throne in Jerusalem; wherefore do I persist in telling you that the Son of Man must presently go to Jerusalem, suffer many things, be rejected by the scribes, the elders, and the chief priests, and after all this be killed and raised from the dead. And I speak not a parable to you; I speak the truth to you that you may be prepared for these events when they suddenly come upon us.” And while he was yet speaking, Simon Peter, rushing

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주님**의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에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증여된 삶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을 바꾸려는, 미묘한 유혹의 암시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심지어 다정하고 충성스런 친구들조차, 그를 단념시키려는 그 제안을 용납하는 위험에 처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마치, 유혹하는 자, 즉 원수처럼 느껴진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때,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원수 편에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방해 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들이 **예수**의 따끔한 꾸지람으로 처음에 충격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님**은 덧붙여 말씀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매일의 자기 책임에 충실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겠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은 후에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 죄 많고 위선적인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도 모든 천상의 무리가 참석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앞에 서 있는 너희 중에 여럿은,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걸어야만 할, 고통스럽고 상충되는 그 길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그렇게 꾸밈없이 설명했다.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보장하는 이 땅에서의 나라를 계속 꿈꾸던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용기를 주는 이 호소로 감동됐고, 그를 버리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홀로 갈등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으며;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이 오직 용감하게 따라오기만을 요구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열두 사도는 서서히 파악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납득할 뿐이었으며, 반면에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의 정신 속에 전혀 새겨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변형되신 산에서 겪은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

impetuously toward him, laid his hand upon the Master's shoulder and said: “Master, be it far from us to contend with you, but I declare that these things shall never happen to you.”

158:7.4 (1760.1) Peter spoke thus because he loved Jesus; but the Master's human nature recognized in these words of well-meant affection the subtle suggestion of temptation that he change his policy of pursuing to the end his earth bestowal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his Paradise Father. And it was because he detected the danger of permitting the suggestions of even his affectionate and loyal friends to dissuade him, that he turned upon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saying: “Get you behind me. You savor of the spirit of the adversary, the tempter. When you talk in this manner, you are not on my side but rather on the side of our enemy. In this way do you make your love for me a stumbling block to my doing the Father's will. Mind not the ways of men but rather the will of God.”

158:7.5 (1760.2) After they had recovered from the first shock of Jesus' stinging rebuke, and before they resumed their journey, the Master spoke further: “If any man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isregard himself, take up his responsibilities daily, and follow me. For whosoever would save his life selfishly, shall lose it, but whos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shall save it.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What would a man give in exchange for eternal life? Be not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sinful and hypocritical generation, even as I will not be ashamed to acknowledge you when in glory I appear before my Father in the presence of all the celestial hosts. Nevertheless, many of you now standing before me shall not taste death till you see this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158:7.6 (1760.3) And thus did Jesus make plain to the twelve the painful and conflicting path which they must tread if they would follow him. What a shock these words were to these Galilean fishermen who persisted in dreaming of an earthly kingdom with positions of honor for themselves! But their loyal hearts were stirred by this courageous appeal, and not one of them was minded to forsake him. Jesus was not sending them alone into the conflict; he was leading them. He asked only that they bravely follow.

158:7.7 (1760.4) Slowly the twelve were grasping the idea that Jesus was telling them something about the possibility of his dying. They only vaguely comprehended what he said about his death, while his statement about rising from the dead utterly failed to register in their minds. As the days passed, Peter, James, and John, recalling their experience upon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arrived at a fuller understanding of certain of these

열두 사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내내, 이 번에 **베드로**와 그들 모두에게 한 것처럼, 눈을 번쩍이면서 빠른 어투로 꾸지람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몇 번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 결점에는 항상 인내했지만, 이 세상의 남은 생애에서 **아버지** 뜻을 절대로 실행하는 동안, 그 계획표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정말로 대경실색했으며;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견뎌야만 함을, 그리고 이 체험에 **주님**과 함께 자신들도 동참해야함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일어날 절박한 비극에 대해 미리 암시했던 이때부터 훨씬 시간이 흐른 뒤까지도, 그들은 다가올 이 사건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에 있는 야영지를 향해, 침묵 속에서 **가버나움** 길을 따라 출발했다. 오후가 됐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와 한 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다.

8. 베드로의 집에서

황혼 무렵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은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윗 세베대**가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을 보시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너희가 함께 걸어오면서, 너희끼리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나눴느냐?”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여럿이,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자신이 무슨 지위를 가질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따위에 관해, **헤르몬 산**에서 시작했던 똑같은 토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날 사도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알고, **베드로**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손짓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앉히고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방향을 바꿔서, 더욱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서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춰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 자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어린 자를 환영하는 자는 나를 환영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너희 형제에게 이 선한 진리를 베풀기 위해 애쓰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짓도록 만들면, 밧줄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 손이 좋아하는 것이나, 네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늘 나라의 진보에 방해된다면, 소중히 여기는 이 우상들을 포기해라, 이 우상들에 매달리다가 결국 천국 문 밖으로 내쫓긴 너희 자신

matters.

158:7.8 (1760.5) In all the association of the twelve with their Master, only a few times did they see that flashing eye and hear such swift words of rebuke as were administere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m on this occasion. Jesus had always been patient with their human shortcomings, but not so when faced by an impending threat against the program of implicitly carrying out his Father's will regarding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The apostles were literally stunned; they were amazed and horrified. They could not find words to express their sorrow. Slowly they began to realize what the Master must endure, and that they must go through these experiences with him, but they did not awaken to the reality of these coming events until long after these early hints of the impending tragedy of his latter days.

158:7.9 (1761.1) In silence Jesus and the twelve started for their camp at Magadan Park, going by way of Capernaum. As the afternoon wore on, though they did not converse with Jesus, they talked much among themselves while Andrew talked with the Master.

8. AT PETER'S HOUSE

158:8.1 (1761.2) Entering Capernaum at twilight, they went by unfrequented thoroughfares directly to the home of Simon Peter for their evening meal. While David Zebedee made ready to take them across the lake, they lingered at Simon's house, and Jesus, looking up at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sked: "As you walked along together this afternoon, what was it that you talked about so earnestly among yourselves?" The apostles held their peace because many of them had continued the discussion begun at Mount Hermon as to what positions they were to have in the coming kingdom; who should be the greatest, and so on. Jesus, knowing what it was that occupied their thoughts that day, beckoned to one of Peter's little ones and, setting the child down among them, said: "Verily, verily, I say to you, except you turn about and become more like this child, you will make little progress in the kingdom of heaven. Whosoever shall humble himself and become as this little one, the same shall becom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so receives such a little one receives me. And they who receive me receive also Him who sent me. If you would be first in the kingdom, seek to minister these good truths to your brethren in the flesh. But whos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and he were cast into the sea. If the things you do with your hands, or the things you see with your eyes give offense in the progress of the kingdom, sacrifice these cherished idols, for it

을 발견하는 것보다, 삶에서 아끼는 많은 것을 잃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의 무리를 항상 대면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배를 타고 **마가단** 쪽으로 건너갔다.

is better to enter the kingdom minus many of the beloved things of life rather than to cling to these idols and find yourself shut out of the kingdom. But most of all, see that you despise not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their angels do always behold the faces of the heavenly hosts."

158:8.2 (1761.3)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y entered the boat and sailed across to Magadan.

제159편. 데가볼리 여행

⇨ 158

유랜시아 책

160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59편
데가볼리 여행

섹션

소개

1. 용서에 대한 설교
2. 색다른 설교자
3. 선생과 신자를 위한 설명
4. 나다니엘과 나눈 대화
5. 예수의 종교의 적극적 본성
6. 마가단으로 돌아옴

PAPER 159
THE DECAPOLIS TOU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rmon on Forgiveness
2. The Strange Preacher
3. Instruction for Teachers and Believers
4. The Talk with Nathaniel
5. The Positive Nature of Jesus' Religion
6. The Return to Magadan

소개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에 도착했을 때, 여자 단체도 포함하여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전도자와 제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데가볼리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여행을 즉시 시작하도록 준비돼 있었다.

8월 18일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파르는 무리를 불러 모아서, 사도들마다 열두 전도자 가운데 하나와 짝을 짓고, 나머지 전도자들과 함께 열두 집단으로 나뉘어, 데가볼리의 도시와 마을들에 나가 일하도록 지시했다. 여자 단체 및 다른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남아있도록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 전도여행에 4주(週)를 보내기로 했고, 늦어도 9월 16일 금요일까지 마가단으로 모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기간에 그들을 종종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달 중에 이 열두 집단은, 거라사, 가말라, 힌보, 자폰, 가다라, 아빌라, 에드레이, 필라델피아, 헤시본, 디움, 스키토폴리스,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일했다. 이 여행 내내, 치유하는 기적 또는 다른 특별한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INTRODUCTION

159:0.1 (1762.1) WHEN Jesus and the twelve arrived at Magadan Park, they found awaiting them a group of almost one hundred evangelists and disciples, including the women's corps, and they were ready immediately to begin the teaching and preaching tour of the cities of the Decapolis.

159:0.2 (1762.2) On this Thursday morning, August 18, the Master called his followers together and directed that each of the apostles should associate himself with one of the twelve evangelists, and that with others of the evangelists they should go out in twelve groups to labor in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The women's corps and others of the disciples he directed to remain with him. Jesus allotted four weeks to this tour, instructing his followers to return to Magadan not later than Friday, September 16. He promised to visit them often during this time. In the course of this month these twelve groups labored in Gerasa, Gamala, Hippos, Zaphon, Gadara, Abila, Edrei, Philadelphia, Heshbon, Dium, Scythopolis, and many other cities. Throughout this tour no miracles of healing or other extraordinary events occurred.

1. 용서에 대한 설교

예수께서는 어느 날 저녁 **히포**에서, 한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용서에 대한 훈계를 가르쳤다. **주님**께서 말씀했다:

“어느 마음씨 고운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즉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선한 목자라면, 발견할 때까지 그 잃은 양을 두루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마침내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선언하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아흔 아홉 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런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길을 잃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더 그렇다. 너희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는,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을 품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용서하기를 배워야 한다. 형제가 네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서 재치와 인내심을 갖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와 그 형제 사이에서만 하도록 하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잘못을 행하면, 그 형제와 네게 친구인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다시 가되, 그렇게 둘 또는 세 명의 증인이, 네게 죄 범하는 형제에게 네가 자비와 공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네 증언을 확증할 수 있게 하라. 그가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회중(會衆)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도 무방하고, 게다가 그가 모든 형제의 말도 거절하면, 그들로 하여금 현명한 생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하며, 제멋대로인 그 회원을 천국 밖으로 쫓아내라. 너희가 동료의 혼을 심판하겠다고 자처할 수 없고, 죄를 용서하거나, 달리 하늘 무리 감독자들의 특권을 감히 빼앗지도 못하겠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졌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성한 판결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형제들이 현세적으로 잘 살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제간의 관계를 훈련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에서, 너희가 땅에서 판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그대로 인지(認知)될 것이다. 너희가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더라도, 그 모임의 운영에 관해 규율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너희 가운데 두 세 사람이 이 일 가운데 어떤 것에든지 의견이 일치되어 내게 요구한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너희가 요청한 것이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

1. THE SERMON ON FORGIVENESS

159:1.1 (1762:3) One evening at Hippos, in answer to a disciple's question, Jesus taught the lesson on forgiveness. Said the Master:

159:1.2 (1762:4) “If a kindhearted man has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goes astray, does he not immediately leave the ninety and nine and go out in search of the one that has gone astray? And if he is a good shepherd, will he not keep up his quest fo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then, when the shepherd has found his lost sheep, he lays it over his shoulder and, going home rejoicing, calls to his friends and neighbors,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I declare that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 and 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Even so,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go astray, much less that they should perish. In your religion God may receive repentant sinn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Father goes forth to find them even before they have seriously thought of repentance.

159:1.3 (1762:5) “The Father in heaven loves his children, and therefore should you learn to love one another; the Father in heaven forgives you your sins; therefore should you learn to forgive one another.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to him and with tact and patience show him his fault. And do all this between you and him alone. If he will listen to you, then have you won your brother. But if your brother will not hear you, if he persists in the error of his way, go again to him, taking with you one or two mutual friends that you may thus have two or even three witnesses to confirm your testimony and establish the fact that you have dealt justly and mercifully with your offending brother. Now if he refuses to hear your brethren, you may tell the whole story to the congregation, and then, if he refuses to hear the brotherhood, let them take such action as they deem wise; let such an unruly member become an outcast from the kingdom. While you cannot pretend to sit in judgment on the souls of your fellows, and while you may not forgive sins or otherwise presume to usurp the prerogatives of the supervisors of the heavenly host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committed to your hands that you should maintain temporal order in the kingdom on earth. While you may not meddle with the divine decrees concerning eternal life, you shall determine the issues of conduct as they concern the temporal welfare of the brotherhood on earth. And so, in all these matters connected with the discipline of the brotherhood, whatsoever you shall decree on earth, shall be recognized in heaven. Although you cannot determine the eternal fate of the individual, you may legislate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group, for, where two or three of you agree

은 항상 참될 것인데, 두 세 신자가 함께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히포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책임을 맡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질문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청지기들에게 회계{會計}할 것을 명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들이 회계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우두머리 고용인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끌려나와서, 왕에게 일 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다. 이때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이 관원은, 어려움이 몰려왔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 우두머리 청지기는 이런 엄중한 판결을 듣고 왕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시간을 더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며 말했다: ‘**주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과실을 범한 이 종과 그 가족을 보자, 왕은 불쌍히 여기게 됐다. 왕은 그를 놓아주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우두머리 청지기는, 왕에게서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입은 후에, 자기 일을 보러 나갔고, 자신에게 오직 일백 데나리 밖에 빚지지 않은 부하 청지기 하나를 발견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내게 빚진 것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하 청지기는, 우두머리 청지기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며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곧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청지기는 부하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다른 부하 청지기들이 왜가는 일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주인이고 지배자인 그 왕에게 나아가 그 상관에 대해 털어놨다. 왕이 우두머리 청지기의 모든 소행을 듣고,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이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부르고 말했다: ‘너는 악하고 무익한 청지기다. 네가 동정을 구할 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하고, 모든 빚을 값없이 탕감해 줬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부하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했느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은혜를 모르는 우두머리 청지기를 옥졸들에게 내주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가두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인간적인 이런 결점으로 인해 형제가 죄 지은 것에 대해 너희가 늘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 너희의 부족

concerning any of these things and ask of me, it shall be done for you if your petition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And all this is ever true, for, where two or three believers are gathered together,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159:1.4 (1763.1) Simon Peter was the apostle in charge of the workers at Hippos, and when he heard Jesus thus speak, he asked: “Lord,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Until seven times?” And Jesus answered Peter: “Not only seven times but even to seventy times and seven. Therefore may the kingdom of heaven be likened to a certain king who ordered a financial reckoning with his stewards. And when they had begun to conduct this examination of accounts, one of his chief retainers was brought before him confessing that he owed his king ten thousand talents. Now this officer of the king’s court pleaded that hard times had come upon him, and that he did not have wherewith to pay this obligation. And so the king commanded that his property be confiscated, and that his children be sold to pay his debt. When this chief steward heard this stern decree, he fell down on his face before the king and implored him to have mercy and grant him more time, saying, ‘Lord, have a little mor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all.’ And when the king looked upon this negligent servant and his family,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He ordered that he should be released, and that the loan should be wholly forgiven.

159:1.5 (1763.2) “And this chief steward, having thus received mercy and forgiveness at the hands of the king, went about his business, and finding one of his subordinate stewards who owed him a mere hundred denarii, he laid hold upon him and, taking him by the throat, said, ‘Pay me all you owe.’ And then did this fellow steward fall down before the chief steward and, beseeching him, said: ‘Only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resently be able to pay you.’ But the chief steward would not show mercy to his fellow steward but rather had him cast in prison until he should pay his debt.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so distressed that they went and told their lord and master, the king. When the king heard of the doings of his chief steward, he called this ungrateful and unforgiving man before him and said: ‘You are a wicked and unworthy steward. When you sought for compassion, I freely forgave you your entire debt. Why did you not also show mercy to your fellow steward, even as I showed mercy to you?’ And the king was so very angry that he delivered his ungrateful chief steward to the jailers that they might hold him until he had paid all that was due. And even so shall my heavenly Father show the more abundant mercy to those who freely show mercy to their fellows. How can

함을 채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천국의 좋은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서 동료들에게 값없이 주도록 해라.”

예수께서는 동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부당함을 설명했다. 계속적인 훈계가 있어야 하고, 응보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형제관계의 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집단**에게 입법권과 재판권을 부여했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집단에게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그것이 개인의 권한으로 행사되서는 결코 안된다. 각 개인에 대해 평결을 내릴 때, 편견 또는 왜곡된 감정 때문에 비뚤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런 위험을 제거하고 개인 성향에 따른 불공정성을 없애기에는, 집단으로 판결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예수**께서는 항상, 불공정, 보복, 원수 갚기 등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자비와 관용을 설명하기 위해 일흔_일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가인**의 철제 무기 때문에 영광했던 것에 대해 기록된 **성서**에서 비롯됐는데, 그는 적들의 무기와 월등히 뛰어난 이 도구를 비교하면서 외쳤다: “만일 **가인**이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일곱 배로 원수를 갚았다면, 이제 나는 일흔_일곱 배로 원수를 갚으리라.”]

2. 색다른 설교자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 및 그와 함께 **가말라**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거기로 올라갔다. 그날 저녁, 질의응답 시간이 있은 후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동료를 만나려고, 우리가 어제 **아스다롯**에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적이 없었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를 금하지 말라. 천국 복음이 곧 온 세계에서 선포되리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자가 너희 지시에 복종하리라고, 어떻게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 가르침이 이미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뻐해라. **요한**아, 내 이름으로 큰 일을 한다는 자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결국 돕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대해 속히 악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야,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우리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는 세대에는, 전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겠으나, 나는 그들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말하는데, 냉수 한 잔을 목마른 자에게 줬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자들이 그런 사랑의 봉사

you come to God asking consideration for your shortcomings when you are wont to chastise your brethren for being guilty of these same human frailties? I say to all of you: Freely you have received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therefore freely give to your fellows on earth.”

159:1.6 (1764.1) Thus did Jesus teach the dangers and illustrate the unfairness of sitting in personal judgment upon one's fellows. Discipline must be maintained, justice must be administered, but in all these matters the wisdom of the brotherhood should prevail. Jesus invested legislative and judicial authority in the *group*, not in the *individual*. Even this investment of authority in the group must not be exercised as personal authority. There is always danger that the verdict of an individual may be warped by prejudice or distorted by passion. Group judgment is more likely to remove the dangers and eliminate the unfairness of personal bias. Jesus sought always to minimize the elements of unfairness, retaliation, and vengeance.

159:1.7 (1762.9) [The use of the term seventy-seven as an illustration of mercy and forbearance was derived from the Scriptures referring to Lamech's exultation because of the metal weapons of his son Tubal-Cain, who, comparing these superior instruments with those of his enemies, exclaimed: "If Cain, with no weapon in his hand, was avenged seven times, I shall now be avenged seventy-seven."]

2. THE STRANGE PREACHER

159:2.1 (1764.3) Jesus went over to Gamala to visit John and those who worked with him at that place. That evening, after the session of questions and answers, John said to Jesus: "Master, yesterday I went over to Ashtaroth to see a man who was teaching in your name and even claiming to be able to cast out devils. Now this fellow had never been with us, neither does he follow after us; therefore I forbade him to do such things." Then said Jesus: "Forbid him not. Do you not perceive that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presently be proclaimed in all the world? How can you expect that all who will believe the gospel shall be subject to your direction? Rejoice that already our teaching has begun to manifest itself beyond the bounds of our personal influence. Do you not see, John, that those who profess to do great works in my name must eventually support our cause? They certainly will not be quick to speak evil of me. My son, in matters of this sort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reckon that he who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n the generations to come many who are not wholly worthy will do many strange things in my name, but I will not forbid them. I tell you that, even when a cup of cold water is given to a thirsty soul, the

에 대해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이 설명은 **요한**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는, 이 경우에는 **예수**께서 천국의 영적 교훈에 대한 사람의 개인 관계에 대해 언급했던 반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전 세계적 형제관계를 앞으로 이룩하게 될 다른 집단들의 업무에 대해, 하나의 신자 무리가 경영상 통제를 하고 판결하는 문제들에 관해, 외적{外的}이고 광범한 사회 관계에 주어졌던 것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 후에 천국을 위해 애쓰면서 이 체험을 종종 되새기곤 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불쾌한 태도를 취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보지도 못한 자가 감히 그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온당치 못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요한**이 금지시킨 이 사람은, 사도들의 명령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옳은 방향으로 노력했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전에 **카나타**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를 모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덴**이었는데, **예수**께서 **케레사** 근처에서 치유했던 미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며, **주님**이 그에게서 쫓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벼랑으로 몰아 떨어저 죽게 했다는 것을 매우 확고하게 믿었다.

Father's messengers shall ever make record of such a service of love.”

159:2.2 (1764.4) This instruction greatly perplexed John. Had he not heard the Master say,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did not perceive that in this case Jesus was referring to man's personal relation to the spiritual teachings of the kingdom, while in the other case reference was made to the outward and far-flung social relations of believers regarding the questions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the jurisdiction of one group of believers over the work of other groups which would eventually compose the forthcoming world-wide brotherhood.

159:2.3 (1765.1) But John oftentimes recounted this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his subsequent labors in behalf of the kingdom. Nevertheless, many times did the apostles take offense at those who made bold to teach in the Master's name. To them it always seemed inappropriate that those who had never sat at Jesus' feet should dare to teach in his name.

159:2.4 (1765.2) This man whom John forbade to teach and work in Jesus' name did not heed the apostle's injunction. He went right on with his efforts and raised up a considerable company of believers at Kanata before going on into Mesopotamia. This man, Aden, had been led to believe in Jesus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demented man whom Jesus healed near Kheresa, and who so confidently believed that the supposed evil spirits which the Master cast out of him entered the herd of swine and rushed them headlong over the cliff to their destruction.

3. 선생과 신자를 위한 설명

예수께서는, **도마**와 동역자들이 일하던 **에드레이**에서 하루 낮과 밤을 보냈으며, 저녁에 가진 토론 과정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지표가 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될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의 표현으로 요약해서 다시 기술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라. 정의는 결코 무력으로 증진되지 않으며; 영적 승리는 오직 영적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물질적 영향을 배제하라는 이 명령은, 심령의 힘뿐 아니라 육체의 힘에도 관련된다. 남자나 여자를 강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압도하는 논쟁과 정신적 우월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정신을 다만 논리적 무게로 압도하거나, 날카로운 웅변술로 위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사 결정에서 한 요소로 감정이 전혀 무시될 수 없으나, 천국 운동을 촉진시킬 자들을 가르칠 때, 감정에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

3. INSTRUCTION FOR TEACHERS AND BELIEVERS

159:3.1 (1765.3) At Edrei, where Thomas and his associates labored, Jesus spent a day and a night and, in the course of the evening's discussion, gave expression to the principles which should guide those who preach truth, and which should activate all who t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taught:

159:3.2 (1765.4) Always respect the personality of man. Never should a righteous cause be promoted by force; spiritual victories can be won only by spiritual power. This injunction against the employment of material influences refers to psychic force as well as to physical force. Overpowering arguments and mental superiority are not to be employed to coerce men and women into the kingdom. Man's mind is not to be crushed by the mere weight of logic or overawed by shrewd eloquence. While emotion as a factor in human

다.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에게 직접 호소하라. 두려움, 연민, 또는 단순한 감상에 호소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호소할 때, 공정하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적당한 억제력을 보이며; 학생들의 인격을 진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자존감을 업신여기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과도한 자존감은 예의 바른 겸손을 보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결국, 자국 교만, 자만, 및 거만에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자존감의 손실은 흔히 의지가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존감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지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며; 그들의 삶에 있는 가장 칭찬할만한 것들을 후하게 인정하는 것도 잊지 말라. 자존감을 잃었던 자들과 정말로 다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를 내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혼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순진한 내 형제들을 희생시키면서 빈정거리는 일에 탐닉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에 시달리는 내 자녀들에게 냉소적 태도를 갖지 말라. 나태함은 자존감에 해로우며; 그러므로 너희 형제가 선택한 과제에 계속 정진하도록 권고하고, 직업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사람들을 위협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무익한 술책을 쓰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들을 위협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케 하지 않는다.

천국의 자녀는, 감정에 속하는 강한 느낌이 신성한 영의 인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이상야릇하게 받는 감동이, 내주하는 영의 인도에 수반되는 그런 충동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신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부터, 영 속에서 사는 더 고귀한 인생으로 옮겨간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부수적 갈등에 관해 모든 믿는 자에게 미리 경고한다. 어느 쪽 세계든지 매우 완전하게 살았던 자에게는 갈등이나 혼돈이 거의 없으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수준의 삶으로 옮겨가는 동안, 다소간 차이는 있어도 모두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돼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책무를 피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기억하라: 복음의 멍에는 쉽고 진리의 짐은 가볍다.

decisions cannot be wholly eliminated, it should not be directly appealed to in the teachings of those who would advance the cause of the kingdom. Make your appeals directly to the divine spirit that dwells within the minds of men. Do not appeal to fear, pity, or mere sentiment. In appealing to men, be fair; exercise self-control and exhibit due restraint; show proper respect for the personalities of your pupils. Remember that I have sai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and if any man will open, I will come in.”

159:3.3 (1765.5) In bringing men into the kingdom, do not lessen or destroy their self-respect. While overmuch self-respect may destroy proper humility and end in pride, conceit, and arrogance, the loss of self-respect often ends in paralysis of the will. It is the purpose of this gospel to restore self-respect to those who have lost it and to restrain it in those who have it. Make not the mistake of only condemning the wrongs in the lives of your pupils; remember also to accord generous recognition for the most praiseworthy things in their lives. Forget not that I will stop at nothing to restore self-respect to those who have lost it, and who really desire to regain it.

159:3.4 (1765.6) Take care that you do not wound the self-respect of timid and fearful souls. Do not indulge in sarcasm at the expense of my simple-minded brethren. Be not cynical with my fear-ridden children. Idleness is destructive of self-respect; therefore, admonish your brethren ever to keep busy at their chosen tasks, and put forth every effort to secure work for those who find themselves without employment.

159:3.5 (1766.1) Never be guilty of such unworthy tactics as endeavoring to frighten men and women into the kingdom. A loving father does not frighten his children into yielding obedience to his just requirements.

159:3.6 (1766.2) Sometim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will realize that strong feelings of emotion are not equivalent to the leadings of the divine spirit. To be strongly and strangely impressed to do something or to go to a certain plac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uch impulses are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spirit.

159:3.7 (1766.3) Forewarn all believers regarding the fringe of conflict which must be traversed by all who pass from the life as it is lived in the flesh to the higher life as it is lived in the spirit. To those who live quite wholly within either realm, there is little conflict or confusion, but all are doomed to experience more or less uncertainty during the times of transition between the two levels of living. In entering the kingdom, you cannot escape its responsibilities or avoid its obligations, but remember: The gospel yoke is easy and the burden of truth is light.

세상에는 생명의 빵을 바로 앞에 놓고도 굶주려서 배고픈 혼들로 가득하며; 자기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신앙을 곧 소유하게 될 시점에, 마음으로는 간절하지만 발은 싫증난 채로 천국 보물을 찾으려고 한다. 신앙과 종교의 관계는, 돛과 배의 관계와 같으며; 신앙은 능력이 들어나는 것이고, 인생에 얹혀있는 짐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싸움이 있는데, 신앙을 갖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의심-공 믿지 않음--과 싸우는 전쟁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누는 친선(親善)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교는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인데, 어떤 것이 그들의 특유한 열망과 이상을 가장 참되게 만족시켜 주는지를, 남녀 모두가 그 안에서 찾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들의 과오를 오래 참는다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 냉혹하고, 죄악을 참지 못한다는 것도 말해라.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정말로 유순하고 겸손하지만, 하늘에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죄로 가득한 반역과 고의적 악행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잔인할 만큼 냉혹하기도 하다.

너희의 선생을 묘사할 때, 비탄에 잠긴 남자로 그리지 마라. 장차 올 세대들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한 광채, 우리의 선한 의지로 인한 낙천적 기질, 그리고 우리의 선한 유머로 인한 영감(靈感)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쉽게 전달된다. 우리 종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로 약동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기쁨으로 가득차고, 그 마음 속에는 즐거움이 반드시 항상 있게 된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누구나, 점증하는 행복을 반드시 체험한다.

거짓 동정심이라는 불안정한 기둥에 기대지 않도록 모든 믿는 자를 가르쳐라. 너희가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때에는 강한 성품을 개발할 수 없으며; 불쌍한 처지를 단순히 함께 슬퍼하는 거짓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직하게 애써라. 인생의 시련 앞에 마지못해 서 있는 소심한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감하고 담력 있는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베풀어라. 재난이 닥쳐왔는데도, 투쟁하기보다는 그저 안일하게 누워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말라. 단지 보답으로 네가 동조를 받을까 기대하여 동료에게 동조하지는 말아라.

내 자녀들이 신성한 현존을 확신하는 자아_의식에 일단 도달하면, 그런 신앙은 정신을 확장시키고, 혼을 고상하게 하며, 인간성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증대시키며, 영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 받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상의 사교나 자연적인 일반 제약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159:3.8 (1766.4) The world is filled with hungry souls who famish in the very presence of the bread of life; men die searching for the very God who lives within them. Men seek for the treasures of the kingdom with yearning hearts and weary feet when they are all within the immediate grasp of living faith. Faith is to religion what sails are to a ship; it is an addition of power, not an added burden of life. There is but one struggle for those who enter the kingdom, and that is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he believer has only one battle, and that is against doubt — unbelief.

159:3.9 (1766.5) In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are simply teaching friendship with God. And this fellowship will appeal alike to men and women in that both will find that which most truly satisfies their characteristic longings and ideals. Tell my children that I am not only tender of their feelings and patient with their frailties, but that I am also ruthless with sin and intolerant of iniquity. I am indeed meek and humble in the presence of my Father, but I am equally and relentlessly inexorable where there is deliberate evil-doing and sinful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159:3.10 (1766.6) You shall not portray your teacher as a man of sorrows. Future generations shall know also the radiance of our joy, the buoyance of our good will, and the inspiration of our good humor. We proclaim a message of good news which is infectious in its transforming power. Our religion is throbbing with new life and new meanings. Those who accept this teaching are filled with joy and in their hearts are constrained to rejoice evermore. Increasing happiness is always the experience of all who are certain about God.

159:3.11 (1766.7) Teach all believers to avoid leaning upon the insecure props of false sympathy. You cannot develop strong characters out of the indulgence of self-pity; honestly endeavor to avoid the deceptive influence of mere fellowship in misery. Extend sympathy to the brave and courageous while you withhold overmuch pity from those cowardly souls who only halfheartedly stand up before the trials of living. Offer not consolation to those who lie down before their troubles without a struggle. Sympathize not with your fellows merely that they may sympathize with you in return.

159:3.12 (1766.8) When my children once become self-conscious of the assurance of the divine presence, such a faith will expand the mind, ennoble the soul, reinforce the personality, augment the happiness, deepen the spirit perception, and enhance the power to love and be loved.

159:3.13 (1767.1) Teach all believers that those who enter the kingdom are not thereby rendered

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가르쳐라. 복음을 믿음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는 않겠지만, 재난이 너희를 덮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용기를 갖고 나를 믿고자 하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틀림없이 안전한 통로로 고생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불운의 강물에서 너희를 건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그 모든 과정에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 신자들 집단이 잠잘 준비를 하기까지, 예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것을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했으며, 이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중중 되풀이하곤 했다.

4. 나다니엘과 나는 대화

그다음에는 예수께서 나다니엘과 그 동역자들이 수고하는 아빌라로 갔다. 나다니엘은, 공인된 히브리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듯 보이는 예수의 어떤 발언들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밤, 통상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다니엘은 예수를 아무도 없는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질문했다: “주님, 제가 성서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시되는 기록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도 가장 훌륭한-- 일부분만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봐 왔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이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취지에서, 랍비들의 교훈을 거부하신다고 추측합니다. 성서에 관하여 무엇이 진리입니까?” 당황하고 있는 사도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나다니엘아, 네가 옳게 판단했으며; 나는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성서를 대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네 형제들에게, 네가 이것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성서의 교훈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 성서가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됐다. 그것들이 유대인 민족의 높은 사고(思考)와 가장 훌륭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교훈을 대표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더 나은 교훈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위해 이삭 줍듯이 진리를 골라낼 수밖에 없다.

“이 여러 기록은 사람들의 작품인데, 그들 가운데 더러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더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 이 책들의 교훈은, 그것이 기

immune to the accidents of time or to the ordinary catastrophes of nature. Believing the gospel will not prevent getting into trouble, but it will insure that you shall be *unafraid* when trouble does overtake you. If you dare to believe in me and wholeheartedly proceed to follow after me, you shall most certainly by so doing enter upon the sure pathway to trouble. I do not promise to deliver you from the waters of adversity, but I do promise to go with you through all of them.

159:3.14 (1767.2) And much more did Jesus teach this group of believers before they made ready for the night's sleep. And they who heard these sayings treasured them in their hearts and did often recite them for the edification of the apostles and disciples who were not present when they were spoken.

4. THE TALK WITH NATHANIEL

159:4.1 (1767.3) And then went Jesus over to Abila, where Nathaniel and his associates labored. Nathaniel was much bothered by some of Jesus' pronouncements which seemed to detract from the authority of the recognized Hebrew scriptures. Accordingly, on this night, after the usual period of questions and answers, Nathaniel took Jesus away from the others and asked: "Master, could you trust me to know the truth about the Scriptures? I observe that you teach us only a portion of the sacred writings — the best as I view it — and I infer that you reject the teachings of the rabbis to the effect that the words of the law are the very words of God, having been with God in heaven even before the times of Abraham and Moses. What is the truth about the Scriptures?" When Jesus heard the question of his bewildered apostle, he answered:

159:4.2 (1767.4) "Nathaniel, you have rightly judged; I do not regard the Scriptures as do the rabbis. I will talk with you about this matter on condition that you do not relate these things to your brethren, who are not all prepared to receive this teaching. The words of the law of Moses and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were not in existence before Abraham. Only in recent times have the Scriptures been gathered together as we now have them. While they contain the best of the higher thoughts and longings of the Jewish people, they also contain much that is far from being 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and teachings of the Father in heaven; wherefore must I choose from among the better teachings those truths which are to be gleaned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159:4.3 (1767.5) "These writings are the work of men, some of them holy men, others not so holy. The teachings of these books represent the views and extent of enlightenment of the times in which they

원된 그 시대에 깨우친 견해와 범위를 나타낸다. 진리의 계시로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신뢰할 만하다. **성서**가 불완전하고 모두 인간에게서 기원 되기는 했지만, 실수하지 마라, 그것은 오늘날 온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종교적 지혜와 영적 진리 중에서 최고의 수집품이다.

이 책들 가운데 다수는 그것이 지닌 이름의 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의 가치는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에 관한 기록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심지어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었다고 해도,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심오한 진리가 있고, 그것은 소위 이방이라고 불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동료를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성시되며, 그들은 이 작품들에서, 정의, 진리, 및 신성함 등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을 기록으로 남겼다. **성서**는 참된 것을 많이 포함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취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많은 부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내가 왔다.

“나다니엘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그들의 적--곧 남녀 어른과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한 순간도 결코 믿으려 하지 마라. 그런 기록은 사람의 말, 그다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서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상태를 반영해 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사무엘부터 이사야까지 선지자들이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 아해 개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 발전해 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느냐? 그리고, 성서가 종교적 지침과 영적 안내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라. 성서는 역사가나 철학자의 작품이 아니다.

“가장 통탄할 일은, 단지 **성서** 기록이 절대로 완전하다는 생각과, 그 교훈이 무오{無誤}하다는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시되는 작품들을 혼동해서 잘못 해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더 새로운 이 교훈에 저항하기 위해, **성서**가 영감{靈感}된 것이라는 교리, 그리고 고집스럽게 노력해서 만든 해석상 오류, 이 둘을 다 채택하려고 한다. **나다니엘아,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계시를 어느 한 세대 또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많은 사람들, **성서**가 완전하다는 이 교리로 인해 혼동되고 낙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진리의 권위는, 진리가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들 속에 깃들어있는 바로 그 기질이며, 덜 교화되고 영감 받았다고 짐작되는 다른 세대 사람들의

had their origin. As a revelation of truth, the last are more dependable than the first. The Scriptures are faulty and altogether human in origin, but mistake not, they do constitute the best collection of religious wisdom and spiritual truth to be found in all the world at this time.

159:4.4 (1767.6) “Many of these books were not written by the persons whose names they bear, but that in no way detracts from the value of the truths which they contain. If the story of Jonah should not be a fact, even if Jonah had never lived, still would the profound truth of this narrative, the love of God for Nineveh and the so-called heathen, be none the less precious in the eyes of all those who love their fellow men. The Scriptures are sacred because they present the thoughts and acts of men who were searching for God, and who in these writings left on record their highest concepts of righteousness, truth, and holiness. The Scriptures contain much that is true, very much, but in the light of your present teaching, you know that these writings also contain much that is misrepresentative of the Father in heaven, the loving God I have come to reveal to all the worlds.

159:4.5 (1768.1) “Nathaniel, never permit yourself for one moment to believe the Scripture records which tell you that the God of love directed your forefathers to go forth in battle to slay all their enemies — men, women, and children. Such records are the words of men, not very holy men, and they are not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s always have, and always will, reflect the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ose who create them. Have you not noted that the concepts of Yahweh grow in beauty and glory as the prophets make their records from Samuel to Isaiah? And you should remember that the Scriptures are intended for religious instruction and spiritual guidance. They are not the works of either historians or philosophers.

159:4.6 (1768.2) “The thing most deplorable is not merely this erroneous idea of the absolute perfection of the Scripture record and the infallibility of its teachings, but rather the confusing misinterpretation of these sacred writings by the tradition-enslaved scribes and Pharisees at Jerusalem. And now will they employ both the doctrine of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ir misinterpretations thereof in their determined effort to withstand these newer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athaniel, never forget, the Father does not limit the revelation of truth to any one generation or to any one people. Many earnest seekers after the truth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confused and disheartened by these doctrines of the perfection of the Scriptures.

159:4.7 (1768.3) “The authority of truth is the very spirit that indwells its living manifestations, and not the dead words of the less illuminated and supposedly

죽은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의 말도 비슷하게 영적으로 영감을 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교훈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는 내가 떠난 후에, 내 교훈에 대한 너희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인해, 가지각색의 진리 논쟁자 분파로 속히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록 만들기를 피하면서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나다니엘**아, 내 말을 잘 기억해라, 인간 본성이 관여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오{無誤}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신성한 진리가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상대적으로 순전할 뿐이며, 부분적인 신성{神性}이 있을 뿐이다. 피조물은 완전무결함을 갈망하지만, 오직 **창조주**들만 완전무결한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성서**를 가르칠 때 가장 큰 잘못은, 오직 그 민족의 현명한 정신을 가진 자들만 감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신비의 책이라고 봉해 버리는 교리에 있다. 신성한 진리의 계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무지, 완고함, 그리고 좁은 마음의 불관용이다. **성서**가 발하는 빛은 오직 선입관으로 약해지며, 미신적 관습으로 인해 어두워질 뿐이다. 신성시되는 것을 헛되이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가 상식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과거의 신성시되는 기록의 권위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 정직한 사람들이, 복음의 새로운 빛, 즉 **하나님**을 알던 다른 세대의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던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슬픈 점은, 이 전통주의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이것을 진정한 진리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성서**의 제한성을 다소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비겁하고,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신성시되는 문서들에 관해 진상을 알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혼란스런 사실을 계속 감추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 지혜, 종교적 영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 사람들의 영적 가르침의 보고{寶庫}로서 신성시되는 문서를 대하기보다, 일상생활의 행동 지침뿐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것들의 권위에 노예처럼 순응하도록 유도하려고, **성서**를 악용하고 왜곡한다.”

나다니엘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교화{敎化}됐고 충격 받았다. 그는 이 대화를 혼 깊숙이 오래 숙고했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까지 이 회담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주님**이 설명한 전체 줄거리를 전하기를 두려워했다.

inspired men of another generation. And even if these holy men of old lived inspired and spirit-filled lives, that does not mean that their words were similarly spiritually inspired. Today we make no record of the teachings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lest, when I have gone, you speedily become divided up into sundry groups of truth contenders as a result of the diversity of your interpretation of my teachings. For this generation it is best that we live these truths while we shun the making of records.

159:4.8 (1768.4) “Mark you well my words, Nathaniel, nothing which human nature has touched can be regarded as infallible. Through the mind of man divine truth may indeed shine forth, but always of relative purity and partial divinity. The creature may crave infallibility, but only the Creators possess it.

159:4.9 (1768.5) “But the greatest error of the teaching about the Scriptures is the doctrine of their being sealed books of mystery and wisdom which only the wise minds of the nation dare to interpret. The revelations of divine truth are not sealed except by human ignorance, bigotry, and narrow-minded intolerance. The light of the Scriptures is only dimmed by prejudice and darkened by superstition. A false fear of sacredness has prevented religion from being safeguarded by common sense. The fear of the authority of the sacred writings of the past effectively prevents the honest souls of today from accepting the new light of the gospel, the light which these very God-knowing men of another generation so intensely longed to see.

159:4.10 (1769.1) “But the saddest feature of all is the fact that some of the teachers of the sanctity of this traditionalism know this very truth. They more or less fully understand these limitations of Scripture, but they are moral cowards, intellectually dishonest. They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sacred writings, but they prefer to withhold such disturbing facts from the people. And thus do they pervert and distort the Scriptures, making them the guide to slavish details of the daily life and an authority in things nonspiritual instead of appealing to the sacred writings as the repository of the moral wisdom, religious inspiration, and the spiritual teaching of the God-knowing men of other generations.”

159:4.11 (1769.2) Nathaniel was enlightened, and shocked, by the Master's pronouncement. He long pondered this talk in the depths of his soul, but he told no man concerning this conference until after Jesus' ascension; and even then he feared to impart the full story of the Master's instruction.

5. 예수의 종교의 적극적 본성

5. THE POSITIVE NATURE OF JESUS'

RELIGION

예수께서는 **아고보**가 사역하는 **필라델피** **아**에서, 천국 복음의 적극적 본성에 관해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진리를 더 많이 담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가장 좋은 영적 음식으로 혼을 먹이라고 청중에게 훈계했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아고보**가 끼어들어 질문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수양을 위하여 **성서**에서 좀 더 적당한 구절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좋다. 아고보**야, 네가 **성서**를 읽을 때, 영원히 참되고 신성하게 아름다운 이런 교훈을 찾아봐라:

“오, **주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너 자신을 사랑함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네게 이끄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민족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또는 천국의 새로운 복음을 가르칠 때 삽입하기 위해, 날마다 **히브리** 성서에서 정선된 것을 인용한 실례(實例)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암시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에 비유했으며, 이 가르침을 자기 종교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신조가, 사람이 형제관계를 필연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림과 사람에게 봉사함이 그의 종교의 전부이며 실질적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여, 천국 복음의 새로운 교훈에서 쓸 만한 배경으로 바꿔놓았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수동적 교리 속에 적극적 행동 기질을 불어넣었다. 예식의 요구사항을 소극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새 종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새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 행하도록 명했다. **예수**의 종교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데 있다. 그의 종교의 근본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사회 봉사는 참된 종교의 기질을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라고 가르쳤다.

159:5.1 (1769.3) At Philadelphia, where James was working, Jesus taught the disciples about the positive natur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in the course of his remarks, he intimated that some parts of the Scripture were more truth-containing than others and admonished his hearers to feed their souls upon the best of the spiritual food, James interrupted the Master, asking: “Would you be good enough, Master, to suggest to us how we may choose the better passages from the Scriptures for our personal edification?” And Jesus replied: “Yes, James, when you read the Scriptures look for those eternally true and divinely beautiful teachings, such as:

159:5.2 (1769.4)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Lord.

159:5.3 (1769.5)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159:5.4 (1769.6)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59:5.5 (1769.7) “For I, the Lord your God, will hold you right hand, saying, fear not; I will help you.

159:5.6 (1769.8) “Neither shall the nations learn war any more.”

159:5.7 (1769.9) And this is illustrative of the way Jesus, day by day, appropriated the cream of the Hebrew scriptures for the instruction of his followers and for inclusion in the teaching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ther religions had suggested the thought of the nearness of God to man, but Jesus made the care of God for man like the solicitude of a loving father for the welfare of his dependent children and then made this teaching the cornerstone of his religion. And thus did the doctrine of the fatherhood of God make imperative the pract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worship of God and the service of man became the sum and substance of his religion. Jesus took the best of the Jewish religion and translated it to a worthy setting in the new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59:5.8 (1769.10) Jesus put the spirit of positive action into the passive doctrines of the Jewish religion. In the place of negative compliance with ceremonial requirements, Jesus enjoined the positive doing of that which his new religion required of those who accepted it. Jesus' religion consisted not merely in *believing*, but in actually *doing*, those things which the gospel required. He did not teach that the essence of his religion consisted in social service, but rather that social service was one of the certain effects of the possession of the spirit of true religion.

예수께서는 더 나은 절반가량의 **성서**를 서슴지 않고 인용한 반면,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은 거부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위대한 권유는, “너희는 내 민족의 자녀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성서**의 기록에서 취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거부했다. 부정적이거나 순전히 소극적인 무저항은 더욱 반대했다. 그는: “원수가 네 한 쪽 뺨을 칠 때, 소극적으로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뺨을 돌려 대라;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네 형제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적극 행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삶의 모든 경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뺨을 돌려대든지, 또는 상정될만한 어떤 행동이든지, 실천하는 것이 요청되며, 믿는 자의 인간성에 어울리도록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악(惡)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모욕에 소극적으로 굴복하도록 권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종자들이 선(善)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될 때까지, 악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가장 고약한 악보다 진실한 선함이 반드시 더 강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주님**은 의(義)의 적극적 표준을 가르쳤다: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주어지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그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말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복음의 이 관점은, 나중에 추종자들에게 말씀한 많은 비유에 그 예가 잘 나타났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참으면서 자기 책무를 감당하라고 훈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적 책임과 신성한 특권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책무를 감당하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겉옷을 부당하게 벗겨 가져든 다른 옷도 벗어주라고 가르쳤을 때, 문자적으로 두 번째 겉옷을 의미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눈에는 눈으로” 등의-- 보복하라는 옛 충고 대신, 가해자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라는 뜻이었다. **예수**께서는 보복하려는 생각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단자 또는 불법의 희생자가 되려는 생각을 아주 싫어했다.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악에 대해 저항하고 싸우는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1. 악을 악으로 갚음--적극적이지만 불의(不義)한 방법.
2. 불평이나 저항 없이 악을 견뎌--순전히 소극적인 방법.

159:5.9 (1770.1) Jesus did not hesitate to appropriate the better half of a Scripture while he repudiated the lesser portion. His great exhortation,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he took from the Scripture which reads: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against the children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esus appropriated the positive portion of this Scripture while rejecting the negative part. He even opposed negative or purely passive nonresistance. Said he: “When an enemy smites you on one cheek, do not stand there dumb and passive but in positive attitude turn the other; that is, do the best thing possible actively to lead your brother in error away from the evil paths into the better ways of righteous living.” Jesus required his followers to react positively and aggressively to every life situation. The turning of the other cheek, or whatever act that may typify, demands initiative, necessitates vigorous, active, and courageous expression of the believer’s personality.

159:5.10 (1770.2) Jesus did not advocate the practice of negative submission to the indignities of those who might purposely seek to impose upon the practitioners of nonresistance to evil, but rather that his followers should be wise and alert in the quick and positive reaction of good to evil to the end that they might effectively overcome evil with good. Forget not, the truly good is invariably more powerful than the most malignant evil. The Master taught a positive standard of righteousness: “Whosoever wishes to be my disciple, let him disregard himself and take up the full measure of his responsibilities daily to follow me.” And he so lived himself in that “he went about doing good.” And this aspect of the gospel was well illustrated by many parables which he later spoke to his followers. He never exhorted his followers patiently to bear their obligations but rather with energy and enthusiasm to live up to the full measure of their human responsibilities and divine privileges in the kingdom of God.

159:5.11 (1770.3) When Jesus instructed his apostles that they should, when one unjustly took away the coat, offer the other garment, he referred not so much to a literal second coat as to the idea of doing something *positive* to save the wrongdoer in the place of the olden advice to retaliate — “an eye for an eye” and so on. Jesus abhorred the idea either of retaliation or of becoming just a passive sufferer or victim of injustice. On this occasion he taught them the three ways of contending with, and resisting, evil:

159:5.12 (1770.4) 1. To return evil for evil — the positive but unrighteous method.

159:5.13 (1770.5) 2. To suffer evil without complaint and without resistance — the purely negative method.

3. 악을 선으로 갚음, 그 상황의 주인이 되도록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선으로 악을 정복함--적극적이고 의로운 방법.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질문한 적이 있었다. “**주님**,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짐을 일 마일이나 지고 가도록 내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 낯선 이를 혼잣말로 꾸짖으면서, 기분전환하려고 앉아서 한숨을 쉬지 않도록 하라. 그런 소극적 태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 효과적인 일을 생각할 수 없거든, 적어도 네가 그 짐을 지고 다음 일 마일을 더 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불의하고 사악한 그 낯선 이에게 확실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유대인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으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죄인들을 찾는데 솔선하며,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종교에서 이런 적극적 내용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에도 적용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인간이 공정해야한다는 적극적 훈계로 바꿨다.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께서는 산만하게 만드는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피했다. 화려한 언어를 멀리했고, 단순히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말장난하기를 피했다. 작은 표현 속에 큰 의미를 습관적으로 부여했다. **예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소금, 누룩, 고기잡이, 어린아이 등과 같은 많은 단어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를 뒤집어서 사용했다. 순간을 영원과 대비시킨 것 외에도, 많은 경우에 대조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한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묘사하는 방법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를 들어 가르친 것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설득력은, 자연스러움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종교 철학을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가져왔다. 그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 증여된 애정을 갖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묘사했다.

6. 마가단으로 돌아옴

데가볼리에서 4주 동안의 전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왔고, 사도와 전도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함께 계심으로 격려받지 않고서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체험을 했다.

9월 16일 금요일에, 전체 사역자 단체가, 미리 지시됐던 대로 **마가단 공원**에 모두 모였다. **안식일**이 되자, 천국 업무를 확장시키기 위한 장차의 계획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신자 협의회가 소집됐다. **다윗**의 심부름꾼

159:5.14 (1770.6) 3. To return good for evil, to assert the will so as to become master of the situation, to overcome evil with good — the positive and righteous method.

159:5.15 (1770.7) One of the apostles once asked: “Master, what should I do if a stranger forced me to carry his pack for a mile?” Jesus answered: “Do not sit down and sigh for relief while you berate the stranger under your breath. Righteousness comes not from such passive attitudes. If you can think of nothing more effectively positive to do, you can at least carry the pack a second mile. That will of a certainty challenge the unrighteous and ungodly stranger.”

159:5.16 (1770.8) The Jews had heard of a God who would forgive repentant sinners and try to forget their misdeeds, but not until Jesus came, did men hear about a God who went in search of lost sheep, who took the initiative in looking for sinners, and who rejoiced when he found them willing to return to the Father’s house. This positive note in religion Jesus extended even to his prayers. And he converted the negative golden rule into a positive admonition of human fairness.

159:5.17 (1771.1) In all his teaching Jesus unfailingly avoided distracting details. He shunned flowery language and avoided the mere poetic imagery of a play upon words. He habitually put large meanings into small expressions.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Jesus reversed the current meanings of many terms, such as salt, leaven, fishing, and little children. He most effectively employed the antithesis, comparing the minute to the infinite and so on. His pictures were striking, such as, “The blind leading the blind.” But the greatest strength to be found in his illustrative teaching was its naturalness. Jesus brought the philosophy of religion from heaven down to earth. He portrayed the elemental needs of the soul with a new insight and a new bestowal of affection.

6. THE RETURN TO MAGADAN

159:6.1 (1771.2) The mission of four weeks in the Decapolis was moderately successful. Hundreds of souls were received into the kingdom, and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had a valuable experience in carrying on their work without the inspiration of the immediate personal presence of Jesus.

159:6.2 (1771.3) On Friday, September 16, the entire corps of workers assembled by prearrangement at Magadan Park. On the Sabbath day a council of more than one hundred believers was held at which the future plans for extending the work of the

들이 와서, **유대지방**,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퍼져 있는 신자들이 잘 지내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이 때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서, 그 심부름꾼 단체의 굉장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심부름꾼들은, **팔레스틴** 전역의 신자를 서로 연결시키고, **예수**와 사도들과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울한 기간에 자금을 모으는 역할도 담당했는데, 이 돈은 **예수**와 동역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의 가족과 열두 전도자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에, **아브넬**은 활동 근거지를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고, 새로 옮긴 장소는 또한 **다윗**의 심부름꾼들의 **유대지방** 본부였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벳새다** 사이에 교대식 연락 용역을 밤새 유지했다. 이들은 매일 저녁 **예루살렘**에서 달려나갔으며, **사이카**와 **스키토폴리스**에서 교대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벳새다**에 도착하곤 했다.

예수와 동역자들은, 이제 천국을 위한 사역의 마지막 기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 한 주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휴식이 됐는데, **베뢰아** 전도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며, 이 운동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들을 연출할 때까지 곧바로 이어졌다.

kingdom were fully considered. The messengers of David were present and made reports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 believers throughout Judea, Samaria, Galilee, and adjoining districts.

159:6.3 (1771.4) Few of Jesus' followers at this time fully appreciated the great value of the services of the messenger corps. Not only did the messengers keep the believers throughout Palestine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with Jesus and the apostles, but during these dark days they also served as collectors of funds, not only for the sustenance of Jesus and his associates, but also for the support of the families of the twelve apostles and the twelve evangelists.

159:6.4 (1771.5) About this time Abner moved his base of operations from Hebron to Bethlehem, and this latter place was also the headquarters in Judea for David's messengers. David maintained an overnight relay messenger service between Jerusalem and Bethsaida. These runners left Jerusalem each evening, relaying at Sychar and Scythopolis, arriving in Bethsaida by breakfast time the next morning.

159:6.5 (1771.6) Jesus and his associates now prepared to take a week's rest before they made ready to start upon the last epoch of their labors in behalf of the kingdom. This was their last rest, for the Perea mission developed into a campaign of preaching and teaching which extended right on down to the time of their arrival at Jerusalem and of the enactment of the closing episodes of Jesus' earth career.

제 160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

⇨ 159

유랜시아 책

161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60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

섹션

소개

1. 로단의 그리스 철학
2. 살아가는 기술
3. 성숙으로 이끄는 매력
4. 성숙의 균형
5. 이상주의자의 종교

PAPER 160

RODAN OF ALEXANDRIA

SECTIONS

Introduction

1. Rodan's Greek Philosophy
2. The Art of Living
3. The Lures of Maturity
4. The Balance of Maturity
5. The Religion of the Ideal

소개

9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안드레**는 앞으로 한 주 동안 아무런 업무도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다니엘**과 **도마**를 제외한 모든 사도는,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이 한 주 동안 거의 완전한 휴식을 취했지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이라는 어떤 **그리스** 철학자와 토론하느라 매우 바빴다. 이 **그리스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넬**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근에 **예수**의 제자가 됐다. **로단**은 이때, 자신의 인생 철학과 **예수**의 새 종교 교훈을 조화시키는 과제에 진지하게 매달렸고, 이 문제에 대해 **주님**과 대화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가단**에 왔다. 또한 그는, **예수** 또는 사도 가운데 하나로부터 권위 있는 복음 해설을 직접 듣고 확인하려 했다. **주님**께서는 **로단**과 그런 협의를 시작하기를 사양했음에도, 그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듣고 나서, 그 대답으로 복음에 대해 그에게 설명해 주라고 즉시 지시했다.

INTRODUCTION

160:0.1 (1772.1) ON SUNDAY morning, September 18, Andrew announced that no work would be planned for the coming week. All of the apostles, except Nathaniel and Thomas, went home to visit their families or to sojourn with friends. This week Jesus enjoyed a period of almost complete rest, but Nathaniel and Thomas were very busy with their discussions with a certain Greek philosopher from Alexandria named Rodan. This Greek had recently become a disciple of Jesus through the teaching of one of Abner's associates who had conducted a mission at Alexandria. Rodan was now earnestly engaged in the task of harmonizing his philosophy of life with Jesus' new religious teachings, and he had come to Magadan hoping that the Master would talk these problems over with him. He also desired to secure a firsthand and authoritative version of the gospel from either Jesus or one of his apostles. Though the Master declined to enter into such a conference with Rodan, he did receive him graciously and immediately directed that Nathaniel and Thomas should listen to all he had to say and tell him about the gospel in return.

1. 로단의 그리스 철학

1. RODAN'S GREEK PHILOSOPHY

월요일 이른 아침에 **로단**은, **나다니엘**, **도마**, 그리고 마침 **마가단**에 있던 스물네 명가량의 신자 무리에게 열 번의 연속된 강연을 했다. 이 말을 압축해서 종합하고 현대의 문체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사상을 고찰할 수 있다:

사람의 삶에는 --충동, 욕망, 및 매혹이라는-- 세 가지 큰 본능적 욕구가 있다. 강한 성품, 즉 위풍당당한 인간성은, 생명의 자연스런 충동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술로 전환시킴으로써만, 즉 현재의 욕망을 변형시켜서 영구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열망에 이르도록 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실존의 평범한 매혹은, 사람의 진부하고 만성적인 관념으로부터, 탐구되지 않은 관념과 발견되지 않은 이상{理想}이라는 더 높은 영역으로 전환돼야 한다.

문명이 복잡해질수록, 살아가는 기술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사회관습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성품을 개발하는 과제도 더 복잡해질 것이다. 진보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매 열 세대마다 다시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영리해져서 사회의 복잡성을 더 조속히 가중시킨다면, 살아가는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기간은 더 짧아져서, 매 세대마다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기술이 실존의 기법과 보조를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인성{人性}은 다시 단순한 삶의 충동--곧 현재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조속히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은 미성숙 상태에 머물 것이며, 사회는 온전히 성숙하기까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사회는, 사람이 단순히 일시적이고 당면한 욕망의 충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더 뛰어난 열망을 품는 정도까지 성숙해지며, 그런 열망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영원한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얻는, 더 풍성한 만족을 산출한다. 그러나 사회가 성숙했다는 진정한 증표{證票}는, 확립된 믿음과 전통적인 관념이 지닌 매력의 안일함을 _장려하는 기준 아래서, 한 민족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기꺼이 버리고, 아직 찾지 못한 이상적인 영적 실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매혹,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가능성을 추구할 때 불안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_소모하게 하는 그 매혹을 택하는 것이다.

동물도 생명의 충동에 훌륭히 반응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살아가는 기술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럴지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겨우 살고자 하는 동물적 충동 밖에 체험하지 못한다. 동물은 다만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충동만 알뿐이며;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이 충동을,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은 지성적 예술의 높은 경지, 심지어 초월적 기쁨과 영적 황홀경의 경지에서 살고자 선택하기도 한다. 동물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

160:1.1 (1772.2) Early Monday morning, Rodan began a series of ten addresses to Nathaniel, Thomas, and a group of some two dozen believers who chanced to be at Magadan. These talks, condensed, combin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present the following thoughts for consideration:

160:1.2 (1772.3) Human life consists in three great drives — urges, desires, and lures. Strong character, commanding personality, is only acquired by converting the natural urge of life into the social art of living, by transforming present desires into those higher longings which are capable of lasting attainment, while the commonplace lure of existence must be transferred from one's conventional and established ideas to the higher realms of unexplored ideas and undiscovered ideals.

160:1.3 (1772.4) The more complex civilization becomes, the more difficult will become the art of living. The more rapid the changes in social usage, the more complicated will become the task of character development. Every ten generations mankind must learn anew the art of living if progress is to continue. And if man becomes so ingenious that he more rapidly adds to the complexities of society, the art of living will need to be remastered in less time, perhaps every single generation. If the evolution of the art of living fails to keep pace with the technique of existence, humanity will quickly revert to the simple urge of living — the attainment of the satisfaction of present desires. Thus will humanity remain immature; society will fail in growing up to full maturity.

160:1.4 (1773.1) Social maturity is equivalent to the degree to which man is willing to surrender the gratification of mere transient and present desires for the entertainment of those superior longings the striving for whose attainment affords the more abundant satisfactions of progressive advancement toward permanent goals. But the true badge of social maturity is the willingness of a people to surrender the right to live peaceably and contentedly under the ease-promoting standards of the lure of established beliefs and conventional ideas for the disquieting and energy-requiring lure of the pursuit of the unexplored possibilities of the attainment of undiscovered goals of idealistic spiritual realities.

160:1.5 (1773.2) Animals respond nobly to the urge of life, but only man can attain the art of living, albeit the majority of mankind only experience the animal urge to live. Animals know only this blind and instinctive urge; man is capable of transcending this urge to natural function. Man may elect to live upon the high plane of intelligent art, even that of celestial joy and spiritual ecstasy. Animals make no inquiry into the purposes of life; therefore they

하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걱정이라는 것이 없고, 자살하지도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순전히 동물적인 실존 단계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필사자 체험에서 예술적 수준을 달성하려는 그런 인간의 탐구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동물은 삶의 의미를 모르지만; 사람은 의미를 납득하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미도 의식한다--곧 통찰력을 가졌음을 스스로 의식한다.

사람들이 자연스런 욕구에 따라서 사는 인생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위험이 많은 기술과 불확실한 논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지적 및 감정적 성숙을 달성할 때까지, 감정적인 불상사--곧 갈등, 불행, 및 불확실성--의 결과로 일어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낙심, 염려, 나태함 등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인간 사회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는데: 각 개인의 성숙을 달성하는 문제와, 종족의 성숙을 달성하는 문제다. 성숙된 인간은, 모든 다른 필사자를 대할 때, 곧 부드러운 느낌과 너그러운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 성숙된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세상 사람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그런 사랑과 동정심으로 바라본다.

성공적인 삶이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기법을 통달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려움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분리시키며, 본질과 위험성을 명백히 아는 것이다. 중대한 실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자부심을 축소시키거나, 질투심을 용납하거나, 또는 깊숙이 위친 편견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 보통 사람은 안전에 대한 옛 환상과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보안에 대한 잘못된 감정에 매달리기를 더 좋아한다. 진지하고 논리적인 정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솔직하게 용납하고 두려움 없이 대처한다.

어떤 문제를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도록 드러나는 문제를 구성하는 실제 요소들을 공평하게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는, 편견, 열중,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다른 선입견에든지 정신이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오직 정직하고 용감한 개인만이, 당황하게 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삶의 미로를 용감하게 통과하면서, 두려움 없는 정신적 논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 혼의 이런 해방은, 종교적 열의에 가까운 지성적 의욕이라는 추진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려운 물질적 문제들로 둘러싸이고 많은 지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사람을 몰아붙이는 데는, 매력 있는 훌륭한 이상(理想)이 요

never worry, neither do they commit suicide. Suicide among men testifies that such beings have emerged from the purely animal stage of existence, and to the further fact that the exploratory efforts of such human beings have failed to attain the artistic levels of mortal experience. Animals know not the meaning of life; man not only possesses capacity for the recognition of values and the comprehension of meanings, but he also is conscious of the meaning of meanings — he is self-conscious of insight.

160:1.6 (1773.3) When men dare to forsake a life of natural craving for one of adventurous art and uncertain logic, they must expect to suffer the consequent hazards of emotional casualties — conflicts, unhappiness, and uncertainties — at least until the time of their attainment of some degree of intellectual and emotional maturity. Discouragement, worry, and indolence are positive evidence of moral immaturity. Human society is confronted with two problems: attainment of the maturity of the individual and attainment of the maturity of the race. The mature human being soon begins to look upon all other mortals with feelings of tenderness and with emotions of tolerance. Mature men view immature folks with the love and consideration that parents bear their children.

160:1.7 (1773.4) Successful living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e art of the mastery of dependable techniques for solving common problems. The first step in the solution of any problem is to locate the difficulty, to isolate the problem, and frankly to recognize its nature and gravity. The great mistake is that, when life problems excite our profound fears, we refuse to recognize them. Likewise, when the acknowledgment of our difficulties entails the reduction of our long-cherished conceit, the admission of envy, or the abandonment of deep-seated prejudices, the average person prefers to cling to the old illusions of safety and to the long-cherished false feelings of security. Only a brave person is willing honestly to admit, and fearlessly to face, what a sincere and logical mind discovers.

160:1.8 (1773.5) The wise and effective solution of any problem demands that the mind shall be free from bias, passion, and all other purely personal prejudices which might interfere with the disinterested survey of the actual factors that go to make up the problem presenting itself for solution. The solution of life problems requires courage and sincerity. Only honest and brave individuals are able to follow valiantly through the perplexing and confusing maze of living to where the logic of a fearless mind may lead. And this emancipation of the mind and soul can never be effected without the driving power of an intelligent enthusiasm which borders on religious zeal. It requires the lure of a great ideal to drive man on in the pursuit of a

구된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무장됐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지지와 동료의 협동을 쟁취하게 하는, 정신적 지혜와 인격적 매력으로 무장돼 있지 않는 한, 성공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동료를 어떻게 설득하고, 사람을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는지 배우지 못한다면, 세속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아무 일에도 크게 성공할 희망은 없다. 여러분은 다만 재치와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께서 늘 행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엄중하게 가르치셨던 것인데, 경건하게 묵상하려고 격리되는 것이다. 자주 혼자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류하신, **예수**의 이런 습관에서 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상적 삶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질에 속하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더라도, 인간성의 타고난 결함을 보충하지는 않으며, 참된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음을 보상하지도 않는다.

삶의 문제를 홀로 살펴보는 이 기간에 몰두하기 위해; 사회적 봉사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에너지를 새롭게 비축하기 위해; 신성(神性)과의 접촉을 의식하도록, 전(全)인격을 실제로 복종시킴으로써, 인생 최고의 목적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실존의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소유하려고 매달리기 위해; 보람되고 실제적인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기에 필수적인, 사람의 인간적 자성에 대한 생생한 재조정과 재조성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곧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즐겨 하시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기 위해-- 홀로 떨어져 있는 **예수**의 습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의 **주님**의 이런 경건한 습관은, 정신이 새로워지도록 긴장을 풀어주며; 혼이 고무되도록 빛을 비추며; 자신의 문제에 과감히 대처하도록 용기를 주며; 최약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자기 이해를 가져오며; 사람이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시켜 주는, 신성(神性)과 합동하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 경배의 긴장 완화 또는 **주님**이 하신 것 같은 영적 친교는 긴장감을 해소시키며, 갈등을 없애고, 인격의 전체 자원을 대단히 증대시킨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모든 철학과 천국 복음을 합치면 새로운 종교가 된다.

goal which is beset with difficult material problems and manifold intellectual hazards.

160:1.9 (1774.1) Even though you are effectively armed to meet the difficult situations of life, you can hardly expect success unless you are equipped with that wisdom of mind and charm of personality which enable you to win the hearty support and co-operation of your fellows. You cannot hope for a large measure of success in either secular or religious work unless you can learn how to persuade your fellows, to prevail with men. You simply must have tact and tolerance.

160:1.10 (1774.2) But the greatest of all methods of problem solving I have learned from Jesus, your Master. I refer to that which he so consistently practices, and which he has so faithfully taught you, the isolation of worshipful meditation. In this habit of Jesus' going off so frequently by himself to commune with the Father in heaven is to be found the technique, not only of gathering strength and wisdom for the ordinary conflicts of living, but also of appropriating the energy for the solution of the higher problems of a moral and spiritual nature. But even correct methods of solving problems will not compensate for inherent defects of personality or atone for the absence of the hunger and thirst for true righteousness.

160:1.11 (1774.3) I am deeply impressed with the custom of Jesus in going apart by himself to engage in these seasons of solitary survey of the problems of living; to seek for new stores of wisdom and energy for meeting the manifold demands of social service; to quicken and deepen the supreme purpose of living by actually subjecting the total personality to the consciousness of contacting with divinity; to grasp for possession of new and better methods of adjusting oneself to the ever-changing situations of living existence; to effect those vital reconstructions and readjustments of one's personal attitudes which are so essential to enhanced insight into everything worth while and real; and to do all of this with an eye single to the glory of God — to breathe in sincerity your Master's favorite prayer,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160:1.12 (1774.4) This worshipful practice of your Master brings that relaxation which renews the mind; that illumination which inspires the soul; that courage which enables one bravely to face one's problems; that self-understanding which obliterates debilitating fear; and that consciousness of union with divinity which equips man with the assurance that enables him to dare to be Godlike. The relaxation of worship, or spiritual communion as practiced by the Master, relieves tension, removes conflicts, and mightily augments the total resources of the personality. And all this philosophy, plus the gospel of the

선입견은 혼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동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전부 포용하는 대의명분을 동경하기에 혼을 진지하게 바침으로써만 선입견이 제거될 수 있다. 선입견은 이기주의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돼 있다. 오직 자기 본위를 버림으로써만, 그리고 자아보다 클 뿐만 아니라 온 인류보다 훨씬 큰 대의명분에 봉사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곧 **하나님**을 찾지, 즉 신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대치함으로써만 선입견을 없앨 수 있다. 인격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하게 참된 그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추구하도록, 인간의 욕구를 전환시키는 데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 질서가 한창 진화하는 중에, 확립되고 고정된 운명의 목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무한히 달성하는 영원한 목적지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환영했던 사람들만, 인격의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적지를 일시적 시간에서 영원성으로,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옮기는 데는, 그의 개심(改心), 전환, 다시 태어남이 요구되며; 신성한 영의 자녀로서 다시 창조돼야 하며;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상이 부족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여러분이 전파하는 복음과 연결되며, 장차 올 모든 세대의 이상(理想)인, 성숙된 새 종교의 표본이다. 이런 설명이 참된 것은, 우리의 이상이 궁극적이고 결코 잘못이 없고, 영원하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무한하기 때문이다.

내 철학은, 참으로 달성할 실체, 즉 성숙의 목적지를 찾도록 나를 재촉했다. 그러나 내 충동은 힘이 없었으며; 내 탐구는 추진력이 부족했으며; 내 추구는 방향 설정에 확실성이 없음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의 새 복음이, 통찰력을 향상하고, 이상을 높이고, 목표를 확립함과 함께, 이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줬다. 나는 이제 의심이나 불안함 없이 전심으로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다.

2. 살아가는 기술

필사자들이 함께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물질적 방법, 즉 동물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방법, 즉 인간다운 방법이다. 동물도 제한된 한도 내에서 어떤 신호나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대화 형태는, 의미, 가치, 또는 관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사람만이, 의

kingdom, constitutes the new religion as I understand it.

160:1.13 (1774.5) Prejudice blinds the soul to the recognition of truth, and prejudice can be removed only by the sincere devotion of the soul to the adoration of a cause that is all-embracing and all-inclusive of one's fellow men. Prejudice is inseparably linked to selfishness. Prejudice can be eliminated only by the abandonment of self-seeking and by substituting therefor the quest of the satisfaction of the service of a cause that is not only greater than self, but one that is even greater than all humanity — the search for God, the attainment of divinity. The evidence of maturity of personality consists i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desire so that it constantly seeks for the realization of those values which are highest and most divinely real.

160:1.14 (1774.6) In a continually changing world, in the midst of an evolving social order,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settled and established goals of destiny. Stability of personality can be experienced only by those who have discovered and embraced the living God as the eternal goal of infinite attainment. And thus to transfer one's goal from time to eternity, from earth to Paradise,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requires that man shall become regenerated, converted, be born again; that he shall become the re-created child of the divine spirit; that he shall gain entrance into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All philosophies and religions which fall short of these ideals are immature. The philosophy which I teach, linked with the gospel which you preach, represents the new religion of maturity, the ideal of all future generations. And this is true because our ideal is final, infallible, eternal, universal, absolute, and infinite.

160:1.15 (1775.1) My philosophy gave me the urge to search for the realities of true attainment, the goal of maturity. But my urge was impotent; my search lacked driving power; my quest suffered from the absence of certainty of directionization. And these deficiencies have been abundantly supplied by this new gospel of Jesus, with its enhancement of insights, elevation of ideals, and settledness of goals. Without doubts and misgivings I can now wholeheartedly enter upon the eternal venture.

2. THE ART OF LIVING

160:2.1 (1775.2) There are just two ways in which mortals may live together: the material or animal way and the spiritual or human way. By the use of signals and sounds animals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 limited way. But such forms of communication do not convey meanings, values, or ideas. The one distinction between man and the animal is that man can

미, 가치, 관념, 그리고 심지어 이상{理想}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상징을 수단으로 해서 동료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은 서로 관념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인격을 발전시킬 수 없다. 사람은, 관념뿐 아니라 이상을 동료들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을 발전시킨다.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연합을 통해서 문명을 이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미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이 역량이다. 지식과 지혜는 누적될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의 역량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족의 문화 활동, 즉: 예술, 과학, 종교, 및 철학이 발생한다.

상징을 통한 인간 사이의 소통이, 사회 집단들이 생겨나도록 예정한다. 모든 사회 집단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가족인데, 그중에도 특히 부모다. 개인적인 애정이, 이 물질적 연합을 함께 묶어주는 영적 결합력이다. 그런 효과적 관계는, 참된 우정으로 인한 헌신에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되듯이, 동성{同性}의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우정과 상호간 애정으로 이뤄지는 이런 교제는, 살아가는 기술을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조장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화 돼가고 고상하게 돼간다:

1. 상호적인 자기_표현과 자기_이해. 인간의 많은 훌륭한 추진력이, 그들의 표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 버린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다소 존중받는 것이, 인간 성품 개발에 필수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성품 계발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성품은 단순한 정신과 도덕 이상{以上}의 무엇이다. 성품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리한 결혼생활을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는, 애정 깊고 이해심 있는 친구관계다. 여러 관계를 동반하는 결혼은, 강한 성품 계발에 불가결한, 더 높은 동기와 귀중한 추진력을 가져오도록 가장 잘 설계돼 있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찬미하는데, 여러분의 **주님**께서, 새로운 이 천국 복음의 바로 그 주춧돌로서 아버지_자녀의 관계를 현명하게 채택하셨기 때문이다. 시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상{理想}을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남자와 여자,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는, 너무 가치 있고 체험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 어떤 희생, 또는 어떤 대가{代價}도 지불해야 한다.

communicate with his fellows by means of *symbols* which most certainly designate and identify meanings, values, ideas, and even ideals.

160:2.2 (1775.3) Since animals cannot communicate ideas to each other, they cannot develop personality. Man develops personality because he can thus communicate with his fellows concerning both ideas and ideals.

160:2.3 (1775.4) It is this ability to communicate and share meanings that constitutes human culture and enables man, through social associations, to build civilizations. Knowledge and wisdom become cumulative because of man's ability to communicate these possessions to succeeding generations. And thereby arise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race: art, science, religion, and philosophy.

160:2.4 (1775.5) Symbolic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predetermines the bringing into existence of social groups. The most effective of all social groups is the family, more particularly the *two parents*. Personal affection is the spiritual bond which holds together these material associations. Such an effective relationship is also possible between two persons of the same sex, as is so abundantly illustrated in the devotions of genuine friendships.

160:2.5 (1775.6) These associations of friendship and mutual affection are socializing and ennobling because they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following essential factors of the higher levels of the art of living:

160:2.6 (1775.7) 1. *Mutual self-expression and self-understanding*. Many noble human impulses die because there is no one to hear their expression. Truly,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Some degree of recognition and a certain amount of appreciation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haracter. Without the genuine love of a home, no child can achieve the full development of normal character. Character is something more than mere mind and morals. Of all social relations calculated to develop character, the most effective and ideal is the affectionate and understanding friendship of man and woman in the mutual embrace of intelligent wedlock. Marriage, with its manifold relations, is best designed to draw forth those precious impulses and those higher motives which are indispensable to the development of a strong character. I do not hesitate thus to glorify family life, for your Master has wisely chosen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as the very cornerstone of this new gospel of the kingdom. And such a matchless community of relationship, man and woman in the fond embrace of the highest ideals of time, is so valuable and satisfying an experience that it is worth any price, any sacrifice, requisite for its possession.

2. **혼들의 합동--지혜를 동원함.** 이 세상 개념과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떤 예견을, 인간마다 조만간 획득한다. 이제는 일시적 실존의 이런 관점과 영원한 전망을 결합하는 것이, 인격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통찰력을 많이 얻음으로써 영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영적 재산을 모음으로써 혼을 풍성케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견의 왜곡, 관점의 선입견, 및 판단의 편협성에 피해자가 되는,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경향을 피할 수 있다. 두려움, 질투, 자만은, 다른 지성인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천국 확장을 위한 일에 여러분을 내보내실 때 절대로 혼자 가지 않도록 하신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그는 항상 여러분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리고 지혜는 초월지식이므로, 사회 집단이 작든지 크든지, 지혜와 합동하여, 모든 지식을 서로 나누게 된다.

3. **살고자 하는 열의.** 고립은 혼에 채워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과 연합하는 것은, 인생의 열정을 새롭게 하기에 꼭 필요하며, 인간의 삶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때 따라오는 투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하기에 필수적이다. 우정은 기쁨을 향상시키고 인생의 승리를 영화롭게 한다. 인간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교제가, 인생의 쓰라린 체험의 슬픔과 학대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는 경향이 있다. 친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모든 아름다움은 더 심화되고, 모든 선은 더 고상하게 된다. 사람은 지능적 상징으로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는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 인간의 우정에서 최고 영광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상상력을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다. 엄청난 영적 능력이, 공동되는 대의명분에 전심으로 헌신함, 즉 시공우주 **신격**에게 공동으로 충성함을 의식하는 데 내재한다.

4.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강화된 방어.** 인격의 연합과 상호 애정이, 악에 대항하는 효과적 대책이다. 어려움, 슬픔, 실망, 및 패배를 혼자 견딜 때에는 더 고통스럽고 낙담된다. 연합 자체가 악을 의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괴로움을 크게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위로할 친구가 옆에 있다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고립될 때 괴로워한다. 인간은 시간의 덧없는 흐름을 관찰할 수밖에 없을 때 반드시 낙담하게 돼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될 때, 짜증날 정도로 하찮게 된다. 사람은 영원성 궤도를 어렴풋이 감지하기만 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고무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에 전력을 다하도록 도전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 즉 시간과 영원성에 머무는 동료의 유익을 위해 가장 사

160:2.7 (1776.1) 2. *Union of souls — the mobilization of wisdom.* Every human being sooner or later acquires a certain concept of this world and a certain vision of the next. Now it is possible, through personality association, to unite these views of temporal existence and eternal prospects. Thus does the mind of one augment its spiritual values by gaining much of the insight of the other. In this way men enrich the soul by pooling their respective spiritual possessions. Likewise, in this same way, man is enabled to avoid that ever-present tendency to fall victim to distortion of vision, prejudice of viewpoint, and narrowness of judgment. Fear, envy, and conceit can be prevented only by intimate contact with other minds. I call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aster never sends you out alone to labor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he always sends you out two and two. And since wisdom is superknowledge, it follows that, in the union of wisdom, the social group, small or large, mutually shares all knowledge.

160:2.8 (1776.2) 3. *The enthusiasm for living.* Isolation tends to exhaust the energy charge of the soul. Association with one's fellows is essential to the renewal of the zest for life and is indispensable to the maintenance of the courage to fight those battles consequent upon the ascent to the higher levels of human living. Friendship enhances the joys and glorifies the triumphs of life. Loving and intimate human associations tend to rob suffering of its sorrow and hardship of much of its bitterness. The presence of a friend enhances all beauty and exalts every goodness. By intelligent symbols man is able to quicken and enlarge the appreciative capacities of his friends. One of the crowning glories of human friendship is this power and possibility of the mutual stimulation of the imagination. Great spiritual power is inherent in the consciousness of wholehearted devotion to a common cause, mutual loyalty to a cosmic Deity.

160:2.9 (1776.3) 4. *The enhanced defense against all evil.* Personality association and mutual affection is an efficient insurance against evil. Difficulties, sorrow, disappointment, and defeat are more painful and disheartening when borne alone. Association does not transmute evil into righteousness, but it does aid in greatly lessening the sting. Said your Master, “Happy are they who mourn” — if a friend is at hand to comfort. There is positive strength in the knowledge that you live for the welfare of others, and that these others likewise live for your welfare and advancement. Man languishes in isolation. Human beings unfailingly become discouraged when they view only the transitory transactions of time. The present, when divorced from the past and the future, becomes exasperatingly trivial. Only a glimpse of the circle of eternity can inspire man to do his best and can challenge the best in him to do

심 없이 산다.

다시 말하지만, 영감을 주고 고상하게 하는 그런 연합은, 인간의 결혼 관계에서 이상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말로, 많은 것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매우 많은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 완전히 실패한다. 사람들이, 인간의 성숙을 가져오는 이런 뛰어난 부속물보다, 다른 낮은 가치들을 찾으려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상적 결혼은 오르 내리는 감정과 변하기 쉬운 성욕{性慾}보다는, 더 안정된 어떤 것 위에 세워져야 하며; 진실하고 상호적인 개인 헌신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런 신뢰할만하고 효과적 인간 연합체의 작은 단위들을 여러분이 조성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 세상은 장엄하고 영화로운 사회 구조, 즉 인간의 성숙된 문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은,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뜻”이라는 여러분의 **주님**이 가진 이상{理想}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사회가 완전하거나 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숙으로 인한 안정에 도달할 것이다.

3. 성숙으로 이끄는 매력

성숙을 향한 노력에는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생각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했다. 정상적인 육체와 상당히 좋은 건강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사람의 잠자는 영적 힘을 깨우도록 자극할, 그런 매력을 찾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살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서, 혼에 묶여 있는 신성과 무한한 능력을 풀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혼이 외향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다음에는 수 없이 많은 다른 혼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고, 축복할 목적으로 일 하시도록,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있겠는가? 너희의 혼 속에 동면하고 있는 선을 향한 이 잠재능력을, 내가 어떻게 깨우면 최선책이 되겠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정적 흥분은 영을 자극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흥분은 에너지를 증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정신은 물론 육체의 능력을 소모시킨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능력을 취하고 계신다. 이 모든 문제의 비밀은, 영적 교류, 즉 경배 속에 감춰져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연합된 묵상과 긴장이완이다. 묵상은 정신과 영이 만나게 하며; 긴장이완은 영적 감수성의 수용력을 결정한다. 약함 대신 힘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자기중심적 정신 대신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its utmost. And when man is thus at his best, he lives most unselfishly for the good of others, his fellow sojourners in time and eternity.

160:2.10 (1777.1) I repeat, such inspiring and ennobling association finds its ideal possibilities in the human marriage relation. True, much is attained out of marriage, and many, many marriages utterly fail to produce these moral and spiritual fruits. Too many times marriage is entered by those who seek other values which are lower than these superior accompaniments of human maturity. Ideal marriage must be founded on something more stable than the fluctuations of sentiment and the fickleness of mere sex attraction; it must be based on genuine and mutual personal devotion. And thus, if you can build up such trustworthy and effective small units of human association, when these are assembled in the aggregate, the world will behold a great and glorified social structure, the civilization of mortal maturity. Such a race might begin to realize something of your Master's ideal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While such a society would not be perfect or entirely free from evil, it would at least approach the stabilization of maturity.

3. THE LURES OF MATURITY

160:3.1 (1777.2) The effort toward maturity necessitates work, and work requires energy. Whence the power to accomplish all this? The physical things can be taken for granted, but the Master has well said, “Man cannot live by bread alone.” Granted the possession of a normal body and reasonably good health, we must next look for those lures which will act as a stimulus to call forth man's slumbering spiritual forces. Jesus has taught us that God lives in man; then how can we induce man to release these soul-bound powers of divinity and infinity? How shall we induce men to let go of God that he may spring forth to the refreshment of our own souls while in transit outward and then to serve the purpose of enlightening, uplifting, and blessing countless other souls? How best can I awaken these latent powers for good which lie dormant in your souls? One thing I am sure of: Emotional excitement is not the ideal spiritual stimulus. Excitement does not augment energy; it rather exhausts the powers of both mind and body. Whence then comes the energy to do these great things? Look to your Master. Even now he is out in the hills taking in power while we are here giving out energy. The secret of all this problem is wrapped up in spiritual communion, in worship. From the human standpoint it is a question of combined meditation and relaxation. Meditation makes the contact of mind with spirit; relaxation determines the capacity for spiritual receptivity. And this interchange of strength for weakness, courage for fear, the will of

것이 경배의 구성요소다. 적어도 그것이 철학자가 바라보는 방법이다.

이 체함이 자주 반복되면, 습관, 즉 힘을 주는 경건한 습관으로 굳어지며, 그런 습관은 결국 그에게 영적 성품을 조성하며, 그런 성품은 동료들로부터 성숙한 인간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훈련은 처음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곧 편안해지고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문명의 매력이 배가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도록 고안된, 그런 보호하는 습관적 관례를 형성할 필요성이 더 다급해질 것이다.

성숙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사회 집단들이 협동해서 적응하는 것이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동료에 대해 적대감을 키우며; 성숙된 사람은, 동역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동을 함으로써, 일생의 노력에 대한 여러 배의 결실을 얻는다.

나의 철학은, 나의 정의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싸워야만 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 성숙된 유형의 인간성으로, 재치와 아량이라는 탁월하고 매력 있는 기법으로, 쉽고 은혜롭게 똑같은 승리를 얻으시리라는 점을 내가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울 때, 너무 많은 경우에, 승리자와 패배자 둘 다 좌절을 체험한다. 나는 **주님**이 바로 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잠긴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때, 현명한 자는 문을 부수기보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확신하려고 싸움을 말려드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이 새로운 천국 복음은, 더 고귀한 삶을 위해 새롭고 더 풍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기술에 크게 기여한다. 그 복음은 새롭고 고귀한 운명의 목적지, 즉 지고한 삶의 목적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존의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개념은, 원래 초월적 자극인데, 사람의 더 높은 본성에 자리 잡은 최선의 반응을 야기한다. 지적 사고가 정점{頂點}에 이를 때마다, 정신을 위한 휴양, 혼을 위한 힘, 그리고 영을 위한 교류가 있다. 고귀한 삶의 그런 유리한 지점으로 부터,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생각--곧 염려, 질투, 시기, 원한, 그리고 미숙한 인격의 자존심--으로 인한 물질적 염증을 초월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이 올라가는 혼들은, 삶에서 사소한 일들이 수없이 상반되는 충돌이 일어날 때 자신을 구해 주며, 그리하여 영 개념과 천상{天上}의 대화라는, 더 높은 흐름을 자유롭게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쉽고 일시적인 달성을 추구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세심하게 보호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은, 광신적인 위험한 조짐에 영향 받지 않

God for the mind of self, constitutes worship. At least, that is the way the philosopher views it.

160:3.2 (1777.3) When these experiences are frequently repeated, they crystallize into habits, strength-giving and worshipful habits, and such habits eventually formulate themselves into a spiritual character, and such a character is finally recognized by one's fellows as a *mature personality*. These practices a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at first, but when they become habitual, they are at once restful and timesaving. The more complex society becomes, and the more the lures of civilization multiply, the more urgent will become the necessity for God-knowing individuals to form such protective habitual practices designed to conserve and augment their spiritual energies.

160:3.3 (1778.1) Another requirement for the attainment of maturity is the co-operative adjustment of social groups to an ever-changing environment. The immature individual arouses the antagonisms of his fellows; the mature man wins the hearty co-operation of his associates, thereby many times multiplying the fruits of his life efforts.

160:3.4 (1778.2) My philosophy tells me that there are times when I must fight, if need be, for the defense of my concept of righteousness, but I doubt not that the Master, with a more mature type of personality, would easily and gracefully gain an equal victory by his superior and winsome technique of tact and tolerance. All too often, when we battle for the right, it turns out that both the victor and the vanquished have sustained defeat. I heard the Master say only yesterday that the “wise man, when seeking entrance through the locked door, would not destroy the door but rather would seek for the key wherewith to unlock it.” Too often we engage in a fight merely to convince ourselves that we are not afraid.

160:3.5 (1778.3) This new gospel of the kingdom renders a great service to the art of living in that it supplies a new and richer incentive for higher living. It presents a new and exalted goal of destiny, a supreme life purpose. And these new concepts of the eternal and divine goal of existence are in themselves transcendent stimuli, calling forth the reaction of the very best that is resident in man's higher nature. On every mountaintop of intellectual thought are to be found relaxation for the mind, strength for the soul, and communion for the spirit. From such vantage points of high living, man is able to transcend the material irritations of the lower levels of thinking — worry, jealousy, envy, revenge, and the pride of immature personality. These high-climbing souls deliver themselves from a multitude of the crosscurrent conflicts of the trifles of living, thus becoming free to attain consciousness of the higher currents of spirit concept and celestial

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4. 성숙의 균형

여러분은 영원한 실체를 성실히 달성함과 동시에, 현세의 삶에 필수적인 것도 제공해야 한다. 영이 우리의 목적지인 반면, 육체는 실상이다. 생활필수품이 우연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영리하게 일해야 한다. 삶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는: 현세의 삶을 사는 것과,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것이다. 삶을 영위하는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종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 참 종교는, 사실상,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현세적 삶의 본질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훌륭한 육체적 건강.
2. 분명하고 깨끗한 생각.
3. 역량과 솜씨.
4. 재산 -- 삶에 필요한 물품.
5. 좌절을 견디는 역량.
6. 문화 -- 교육과 지혜.

몸의 건강과 능력에 관한 육체적 문제일지라도, 이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종교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사람의 몸과 정신은, **하나님**들의 선물,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되어 거주하는 장소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 실체 사이의 중재자{仲裁者}가 된다.

사람이 인생에 바람직한 것들을 자기 몫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다. 사람이 일상 활동에 충실하기만 하면 번영이라는 상급{賞給}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다. 이따금 또는 우연히 재산을 획득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세의 생애에서 물질적 보상은 잘 조직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견되며, 이 경로에 접근하는 자들만이, 현세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잘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립되고 개별적인 경로에서 풍요를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가난할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이, 이 세상 성공에 필수적인 한 가지가 된다. 성공하려면 자기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가 흐르는 어떤 경로의 일부가 되어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현명하지 못하면, 일생동안 삶을 헌신해도 물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풍요의 흐름의 우연한 수혜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

communication. But the life purpose must be jealously guarded from the temptation to seek for easy and transient attainment; likewise must it be so fostered as to become immune to the disastrous threats of fanaticism.

4. THE BALANCE OF MATURITY

160:4.1 (1778.4) While you have an eye single to the attainment of eternal realities, you must also make provision for the necessities of temporal living. While the spirit is our goal, the flesh is a fact. Occasionally the necessities of living may fall into our hands by accident, but in general, we must intelligently work for them. The two major problems of life are: making a temporal living and the achievement of eternal survival. And even the problem of making a living requires religion for its ideal solution. These are both highly personal problems. True religion, in fact, does not function apart from the individual.

160:4.2 (1778.5) The essentials of the temporal life, as I see them, are:

160:4.3 (1778.6) 1. Good physical health.

160:4.4 (1778.7) 2. Clear and clean thinking.

160:4.5 (1778.8) 3. Ability and skill.

160:4.6 (1778.9) 4. Wealth — the goods of life.

160:4.7 (1778.10) 5. Ability to withstand defeat.

160:4.8 (1778.11) 6. Culture — education and wisdom.

160:4.9 (1779.1) Even the physical problems of bodily health and efficiency are best solved when they are viewed from the religious standpoint of our Master's teaching: That the body and mind of man are the dwelling place of the gift of the Gods, the spirit of God becoming the spirit of man. The mind of man thus becomes the mediator between material things and spiritual realities.

160:4.10 (1779.2) It requires intelligence to secure one's share of the desirable things of life. It is wholly erroneous to suppose that faithfulness in doing one's daily work will insure the rewards of wealth. Barring the occasional and accidental acquirement of wealth, the material rewards of the temporal life are found to flow in certain well-organized channels, and only those who have access to these channels may expect to be well rewarded for their temporal efforts. Poverty must ever be the lot of all men who seek for wealth in isolated and individual channels. Wise planning, therefore, becomes the one thing essential to worldly prosperity. Success requires not only devotion to one's work but also that one should function as a part of some one of the channels of material wealth. If you are unwise, you can bestow a devoted life upon your generation without

지 않으면서도, 사치 속에 빈둥거리며 살지도 모른다.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요, 솜씨는 획득하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솜씨는 만족한 삶의 실제 근원 가운데 하나다. 역량에는 선견{先見}의 은사, 즉 선견지명의 통찰력이 포함된다. 정직하지 못한 성취가 유혹하는 보상에 속지 말며; 정직한 노력의 결과로 나중에 일어날 보상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라. 현명한 자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과도하게 계획하여, 자신의 높은 목적을 좌절시킨다. 만족을 추구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되려고 항상 애써야 한다.

인생에서 용기를 주고 보람 있는 단편사건들을 신성하게 간직하도록, 여러분의 기억력을 훈련시켜라, 그러면, 그 사건들을 기쁨과 계발을 위해 뜻대로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단련시키고, 여러분 자신 속에, 아름다움, 선함, 및 예술적인 위엄을 확보하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기억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훌륭한 친구관계를 가졌던 그 중요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해 둔 추억이다. 그리고 영적 경배의 풀어주는 손길 아래서, 기억 속의 이 모든 보화가 가장 귀중하고 높여주는 영향력을 발산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존에서 짐이 될 것이다. 실패 속에는 고귀한 혼들이 항상 획득하는 어떤 기술이 있으며; 여러분은 기분 좋게 잃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며;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속이는 미소와 낙천적 태도로, 애써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라. 성공을 주장하는 소리는 항상 요란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소름끼치게 한다. 그런 기법은 필연적으로, 비현실 세계를 지어내고, 궁극적 환멸이라는 파멸로 직접 이끈다.

성공이 용기를 낳고 자신감을 증대시키겠지만, 지혜는 오직 사람이 자신의 실패 결과에 적응해 가는 체험에서 나온다. 실체보다 낙천적 환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해질 수 없다. 사실에 직면하면서 이상에 맞게 사실을 맞춰 가는 자만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지혜는 사실과 이상을 모두 포함하며, 그리하여 철학의 메마른 양극단{兩極端}으로부터--곧 사실을 거부하는 이상주의자와, 영적 전망이 결여된 유토피아로부터--지혜에 중독된 자들을 구해준다. 성공한다는 계속된 거짓 환상의 도움으로 인생의 고너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인 소심한 혼은, 자신이 상상하는 꿈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깨어날 때,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체험하게 돼있다.

그리고 실패에 대처하고 패배에 적응하는 일에는, 멀리까지 미치는 종교적 통찰력이 최상의 영향을 미친다. 우주를 탐구하려는 영원한 탐

material reward; if you are an accidental beneficiary of the flow of wealth, you may roll in luxury even though you have done nothing worth while for your fellow men.

160:4.11 (1779.3) Ability is that which you inherit, while skill is what you acquire. Life is not real to one who cannot do some one thing well, expertly. Skill is one of the real sources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Ability implies the gift of foresight, farseeing vision. Be not deceived by the tempting rewards of dishonest achievement; be willing to toil for the later returns inherent in honest endeavor. The wise man is able to distinguish between means and ends; otherwise, sometimes overplanning for the future defeats its own high purpose. As a pleasure seeker you should aim always to be a producer as well as a consumer.

160:4.12 (1779.4) Train your memory to hold in sacred trust the strength-giving and worth-while episodes of life, which you can recall at will for your pleasure and edification. Thus build up for yourself and in yourself reserve galleries of beauty, goodness, and artistic grandeur. But the noblest of all memories are the treasured recollections of the great moments of a superb friendship. And all of these memory treasures radiate their most precious and exalting influences under the releasing touch of spiritual worship.

160:4.13 (1779.5) But life will become a burden of existence unless you learn how to fail gracefully. There is an art in defeat which noble souls always acquire; you must know how to lose cheerfully; you must be fearless of disappointment. Never hesitate to admit failure. Make no attempt to hide failure under deceptive smiles and beaming optimism. It sounds well always to claim success, but the end results are appalling. Such a technique leads directly to the creation of a world of unreality and to the inevitable crash of ultimate disillusionment.

160:4.14 (1779.6) Success may generate courage and promote confidence, but wisdom comes only from the experiences of adjustment to the results of one's failures. Men who prefer optimistic illusions to reality can never become wise. Only those who face facts and adjust them to ideals can achieve wisdom. Wisdom embraces both the fact and the ideal and therefore saves its devotees from both of those barren extremes of philosophy — the man whose idealism excludes facts and the materialist who is devoid of spiritual outlook. Those timid souls who can only keep up the struggle of life by the aid of continuous false illusions of success are doomed to suffer failure and experience defeat as they ultimately awaken from the dream world of their own imaginations.

160:4.15 (1780.1) And it is in this business of facing failure and adjusting to defeat that the far-reaching vision of religion exerts its supreme influence.

험에 동참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체험에서, 실패는 다만 하나의 교육적 사건--곧 지혜 습득을 연마하는 실험--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에게 패배는, 다만 우주 실체의 높은 수준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

현세의 **인생** 계획 전체가 불가항력적 실패로 드러날지라도, 인생의 실패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교양과 영적 성취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은 영원성의 견지에서 볼 때 크게 성공했다고 판명될 것이다. 지식, 문화, 및 지혜를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것들은 인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방대하게 다른 영 가치를 나타내며; 지혜가 언제나 지식을 지배하고 문화를 항상 영화롭게 한다.

5. 이상주의자의 종교

여러분의 **주님**은 인간의 참된 종교를 영적 실체에 대한 각자의 체험으로 간주하신다고, 여러분이 내게 일러줬다. 나는 종교를, 온 인류가 충성과 헌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중요시하는 어떤 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의 체험으로 간주해 왔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실체의 이상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을 나타내는 것과, 영적 달성의 영원한 가능성을 향해 우리 정신이 가장 멀리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최상으로 헌신함을 상징한다.

부족, 민족, 또는 종족의 의미에서 사람이 종교에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집단 밖에 있는 자들은 진정 인간답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종교는 단순히 지적 믿음이나 철학적 이론의 문제일 수 없으며; 종교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인생의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며; 행위의 한 형식이다. 종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숭배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를 향해, 겸손히 생각함, 느낌, 그리고 행함을 포함한다.

여러분이 체험한 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종교가 됐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 종교의 능동적 강령{綱領}이 됐음이 자명한데,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최상의 개념에 대해, 온 인류, 즉 온 우주의 지성체들이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의 적극적이고 선교적인 강령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오직 전통적 믿음이거나 단순한 지적 철학 체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다. 여러분의 종교가 영적 체험이라면, 여러분이 경배 드리는 대상은 보편적 영이라는 실체여야 하며, 여러분의 모든 영적 개념의 이상{理想}이어야 한다. 두려움, 감정, 전통, 및 철학에 기초하는 모든 종교를, 나는 지적 종교라고 부르는 한편, 참된 영 체험에 기초하는 종교를 참 종교라고 부르려 한다. 종교적 헌신 대상은, 물질적이거나

Failure is simply an educational episode — a cultural experiment in the acquirement of wisdom — in the experience of the God-seeking man who has embarked on the eternal adventure of the exploration of a universe. To such men defeat is but a new tool for the achievement of higher levels of universe reality.

160:4.16 (1780.2) The career of a God-seeking man may prove to be a great success in the light of eternity, even though the whole temporal-life enterprise may appear as an overwhelming failure, provided each life failure yielded the culture of wisdom and spirit achievement.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knowledge, culture, and wisdom. They are related in life, but they represent vastly differing spirit values; wisdom ever dominates knowledge and always glorifies culture.

5. THE RELIGION OF THE IDEAL

160:5.1 (1780.3) You have told me that your Master regards genuine human religion as the individual's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ies. I have regarded religion as man's experience of reacting to something which he regards as being worthy of the homage and devotion of all mankind. In this sense, religion symbolizes our supreme devotion to that which represents our highest concept of the ideals of reality and the farthest reach of our minds toward eternal possibilities of spiritual attainment.

160:5.2 (1780.4) When men react to religion in the tribal, national, or racial sense, it is because they look upon those without their group as not being truly human. We always look upon the object of our religious loyalty as being worthy of the reverence of all men. Religion can never be a matter of mere intellectual belief or philosophic reasoning; religion is always and forever a mode of reacting to the situations of life; it is a species of conduct. Religion embraces thinking, feeling, and acting reverently toward some reality which we deem worthy of universal adoration.

160:5.3 (1780.5) If something has become a religion in your experience, it is self-evident that you already have become an active evangel of that religion since you deem the supreme concept of your religion as being worthy of the worship of all mankind, all universe intelligences. If you are not a positive and missionary evangel of your religion, you are self-deceived in that what you call a religion is only a traditional belief or a mere system of intellectual philosophy. If your religion is a spiritual experience, your object of worship must be the universal spirit reality and ideal of all your spiritualized concepts. All religions based on fear, emotion, tradition, and philosophy I term the intellectual religions, while those based on true spirit experience I would term the true religions.

영적이거나,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실제적이거나 비실제적이거나, 인간답거나 신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도덕과 종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도덕 체계는 경배 대상을 터득함으로써 종교가 될 수 있다. 종교는, 충실함과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는 보편적 호소력을 잃음으로써, 철학 체계 또는 도덕규범으로 변할 수 있다. 종교적 충성심의 최고 이상을 구성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수납하는, 이 것, 이 분, 이 상태 또는 이 실존 체계, 혹은 달성할 가능성이, **하나님**이다. 영 실체의 이 이상{理想}에 붙여지는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참 종교의 사회적 특질은, 그것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모시키고자 변함없이 추구한다는 그 사실에 있다. 종교는, 발견되지 못한 이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문명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제도의 최고 사회 관계에도 포함된, 이미 알려져 있는 윤리 및 도덕 기준을 훨씬 능가한다. 종교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 아직 탐험되지 못한 실체, 초인적 가치, 신성한 지혜, 그리고 참된 영 달성을 향해 뻗어 나간다. 참 종교는 이 모든 것을 행하지만; 다른 모든 믿음은 그 이름만큼의 가치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숭고한 이상{理想} 없이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종교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사람의 창작물, 즉 생명 없는 지적 믿음의 인간 제도이며, 의미 없는 감정적 예식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는 훌륭한 이상을 헌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은 달성될 수 없으며; 그런 개념은 착각이다.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적 사실에 있는, 무한히 가치 있는 신성한 실체들뿐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이라는 *이상*에 대비된 **하나님** 관념은, 그 종교가 미숙할 가능성 또는 잘못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관념은, 신봉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저급한 종교는, 인간 심성의 자연스런 상태에 맞도록 자체의 **하나님** 관념을 꾸미며; 높은 수준의 종교는, 참 종교의 이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지도록 인간의 심성이 바뀌기를 원한다.

예수의 종교는, 경배 관념에 대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개념을 초월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무한한 실체라는 이상{理想}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 땅에서 선택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신분 및 사람의 형제관계를 수락하기로 동의한 모든 필사{必死} 피조물이, 신성한 가치 근원과 영원한 우주 중심을 진정으로 몸소 달성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진술하는 그것은, 세상에 알

The object of religious devotion may be material or spiritual, true or false, real or unreal, human or divine. Religions can therefore be either good or evil.

160:5.4 (1780.6) Morality and religion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A system of morals, by grasping an object of worship, may become a religion. A religion, by losing its universal appeal to loyalty and supreme devotion, may evolve into a system of philosophy or a code of morals. This thing, being, state, or order of existence, or possibility of attainment which constitutes the supreme ideal of religious loyalty, and which is the recipient of the religious devotion of those who worship, is God. Regardless of the name applied to this ideal of spirit reality, it is God.

160:5.5 (1781.1)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a true religion consist in the fact that it invariably seeks to convert the individual and to transform the world. Religion implies the existence of undiscovered ideals which far transcend the known standards of ethics and morality embodied in even the highest social usages of the most mature institutions of civilization. Religion reaches out for undiscovered ideals, unexplored realities, superhuman values, divine wisdom, and true spirit attainment. True religion does all of this; all other beliefs are not worthy of the name. You cannot have a genuine spiritual religion without the supreme and supernal ideal of an eternal God. A religion without this God is an invention of man, a human institution of lifeless intellectual beliefs and meaningless emotional ceremonies. A religion might claim as the object of its devotion a great ideal. But such ideals of unreality are not attainable; such a concept is illusionary. The only ideals susceptible of human attainment are the divine realities of the infinite values resident in the spiritual fact of the eternal God.

160:5.6 (1781.2) The word God, the *idea* of God as contrasted with the *ideal* of God, can become a part of any religion, no matter how puerile or false that religion may chance to be. And this idea of God can become anything which those who entertain it may choose to make it. The lower religions shape their ideas of God to meet the natural state of the human heart; the higher religions demand that the human heart shall be chang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ideals of true religion.

160:5.7 (1781.3) The religion of Jesus transcends all our former concepts of the idea of worship in that he not only portrays his Father as the ideal of infinite reality but positively declares that this divine source of values and the eternal center of the universe is truly and personally attainable by every mortal creature who choose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thereby acknowledging the acceptance of sonship with God and brotherhood

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개념이고, 더 높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데, 무한한 실체, 신성한 가치, 및 영원한 보편적 달성을 이복음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은, 지존(至尊)과 궁극(窮極)이라는 이상주의를, 체험함으로써 성취하게 한다.

나는 여러분의 **주님**이 지닌, 이 종교의 더할 나위 없는 이상(理想)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 실체라는 이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의 선포를 믿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원** 입구에 확실히 도달할 것이라는 그의 보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내가 이 길고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하게 감동받는다. 형제들이여, 나도 믿는다. 나도 같은 배를 탔다. 이 영원한 모험에 여러분과 같이 길을 걷고 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심을 온전히 믿는다. 나는 결국 영원하신 **만유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한 가치 또는 실재하는 이상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미 있는 실존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미래에 실존 가능한 모든 존재의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므로 최상의 이상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그 이상(理想)이 실체라면, 물질과 존재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우주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하나님**도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하나님**은 없다. 다른 모든 신(神)은 상상의 산물이고, 필사 정신의 환상이며, 잘못된 논리의 왜곡이며, 그런 것을 창작하는 자들의 자기_기만적 우상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 **하나님**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상의 실체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추구하려 한다면, 이상, 즉 신성한 실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게 될 뿐이다. 그런 믿음은 단지 희망에 의거한 공상의 종교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의 교훈에서 최상의 종교를 발견한다. 이 복음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를 찾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는가? 자아를 버리고 혼을 다시 세워가는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할 것인가? **주님**이: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며, 오히려 혼이 투쟁하게 하러 왔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뜻에 헌신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 후에야, 성별된 삶의 영적 경로를 계속 걷게 하는 엄청난 평화를 체험한다.

우리는 이제, 실존하는 알려진 종류의 유혹을 정말로 배척하고 있으며, 한편 신성한 실체라는 더 높은 이상주의의 영 세계들에서 탐험하는 미래적 삶이 실존한다는, 알려지지 않고 탐험되지 않

with man. That, I submit, is the highest concept of religion the world has ever known, and I pronounce that there can never be a higher since this gospel embraces the infinity of realities, the divinity of values, and the eternity of universal attainments. Such a concept constitutes the achievement of the experience of the idealism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60:5.8 (1781.4) I am not only intrigued by the consummate ideals of this religion of your Master, but I am mightily moved to profess my belief in his announcement that these ideals of spirit realities are attainable; that you and I can enter upon this long and eternal adventure with his assurance of the certainty of our ultimate arrival at the portals of Paradise. My brethren, I am a believer, I have embarked; I am on my way with you in this eternal venture. The Master says he came from the Father, and that he will show us the way. I am fully persuaded he speaks the truth. I am finally convinced that there are no attainable ideals of reality or values of perfection apart from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160:5.9 (1781.5) I come, then, to worship, not merely the God of existences, but the God of the possibility of all future existences. Therefore must your devotion to a supreme ideal, if that ideal is real, be devotion to this God of past, present, and future universes of things and beings. And there is no other God, for there cannot possibly be any other God. All other gods are figments of the imagination, illusions of mortal mind, distortions of false logic, and the self-deceptive idols of those who create them. Yes, you can have a religion without this God, but it does not mean anything. And if you seek to substitute the word God for the reality of this ideal of the living God, you have only deluded yourself by putting an idea in the place of an ideal, a divine reality. Such beliefs are merely religions of wishful fancy.

160:5.10 (1782.1) I see in the teachings of Jesus, religion at its best. This gospel enables us to seek for the true God and to find him. But are we willing to pay the price of this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Are we willing to be born again? to be remade? Are we willing to be subject to this terrible and testing process of self-destruction and soul reconstruction? Has not the Master said: “Whoso would save his life must lose it.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but rather a soul struggle”? True, after we pay the price of dedication to the Father’s will, we do experience great peace provided we continue to walk in these spiritual paths of consecrated living.

160:5.11 (1782.2) Now are we truly forsaking the lures of the known order of existence while we unreservedly dedicate our quest to the lures of the unknown and unexplored order of the existence of

은 종류의 매력을 우리가 탐구하기로 했음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종교라는 이상주의의 실체에 대한 이 개념들을 우리 동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징을 찾고 있으며, 온 인류가 이런 최상의 진리를 공동으로 목격함으로써 감격할 그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 속에 간직된 바와 같이,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아버지**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며; 우리 동료에게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예수의 종교는, 생생하고 영적인 체험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들은, 전통적 신념, 감정적 느낌, 철학적 의식(意識), 그리고 이 모든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영의 참된 진보를 실제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충동을 의식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감정적 느낌도 참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신하는 지식도 참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 추론하는 지혜는, 개인적 및 영적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전심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실체 및 이상주의뿐 아니라, 달성할 운명 및 그 실체와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계시함으로써, 이 모두가 우리에게 몸소 겪는 것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 철학자이자, 그 종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의 논설이 끝났다.

a future life of adventure in the spirit worlds of the higher idealism of divine reality. And we seek for those symbols of meaning wherewith to convey to our fellow men these concepts of the reality of the idealism of the religion of Jesus, and we will not cease to pray for that day when all mankind shall be thrilled by the communal vision of this supreme truth. Just now, our focalized concept of the Father, as held in our hearts, is that God is spirit; as conveyed to our fellows, that God is love.

160:5.12 (1782.3) The religion of Jesus demands living and spiritual experience. Other religions may consist in traditional beliefs, emotional feelings, philosophic consciousness, and all of that, but the teaching of the Master requires the attainment of actual levels of real spirit progression.

160:5.13 (1782.4) The consciousness of the impulse to be like God is not true religion. The feelings of the emotion to worship God are not true religion. The knowledge of the conviction to forsake self and serve God is not true religion. The wisdom of the reasoning that this religion is the best of all is not religion as a personal and spiritual experience. True religion has reference to destiny and reality of attainment as well as to the reality and idealism of that which is wholeheartedly faith-accepted. And all of this must be made personal to us by the revelation of the Spirit of Truth.

160:5.14 (1782.5) And thus ended the dissertations of the Greek philosopher, one of the greatest of his race, who had become a believer in the gospel of Jesus.

제161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 160

유랜시아 책

162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61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섹션

소개

1. 하나님의 인격
2. 예수의 신성한 본성
3. 예수의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소개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에, 사도와 전도자들이 **마가단**에 모였다.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동역자들과 오래 협의한 후에, 열두 사도와 함께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날 일찍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는 전도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를 방문하도록 지시했고, 여자 단체에게는 얼마 동안 **벳새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시간이 됐을 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여전히 토론하는 중이었으며, **마가단**에 며칠 더 머물러도 좋다는 **주님**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와 열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에 몰두했다. **로단**이 자신의 철학을 자세히 설명했던 지난 주 동안, **도마**와 **나다니엘**은 교대로 **그리스** 철학자에게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로단**은 예전에 **세레 요한**의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자신이 **예수**의 교훈을 잘 배웠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의 선생이었다.

1. 하나님의 인격

PAPER 161
FURTHER DISCUSSIONS WITH
RODA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ersonality of God
2. The Divine Nature of Jesus
3. Jesus' Human and Divine Minds

INTRODUCTION

161:0.1 (1783.1) ON SUNDAY, September 25, A.D. 29,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assembled at Magadan. After a long conference that evening with his associates, Jesus surprised all by announcing that early the next day he and the twelve apostles would start for Jerusalem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He directed that the evangelists visit the believers in Galilee, and that the women's corps return for a while to Bethsaida.

161:0.2 (1783.2) When the hour came to leave for Jerusalem, Nathaniel and Thomas were still in the midst of their discussions with Rodan of Alexandria, and they secured the Master's permission to remain at Magadan for a few days. And so, while Jesus and the ten were on their way to Jerusalem, Nathaniel and Thomas were engaged in earnest debate with Rodan. The week prior, in which Rodan had expounded his philosophy, Thomas and Nathaniel had alternated in present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Greek philosopher. Rodan discovered that he had been well instructed in Jesus' teachings by one of the former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who had been his teacher at Alexandria.

1. THE PERSONALITY OF GOD

로단과 두 사도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다. **로단**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해 제시된 모든 것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인격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격자가 아니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한 반면, **로단**은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심을 증명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격이라는 사실은, 동등한 존재들, 즉 마음이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온전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공존{共存}하는 현실에 달려있다고, **로단**은 강력히 주장했다. **로단**이 말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징을 가지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모든 다른 존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들에 관한 한,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와 동등한 존재는 결코 없으며;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격의 근원이겠지만, 인격을 초월하는 분이고, 피조물을 훨씬 뛰어 넘는 창조주시다.”

이 주장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아주 곤혹스럽게 됐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토론에 참견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아버지**의 이상적인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에 영적으로 정통하는 한, 너희가 그에 대해 무슨 관념을 갖는가 하는 것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도마는, **하나님**이 사람과 의사소통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격자시며, **로단**의 설명에서도 물론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한 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자신이 몸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예로 들어 호소했는데, **로단**도 최근에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동의했으나, 이 체험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실체만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요일 밤이 되자 **도마**는 포기했다. 그러나 화요일 밤에, **나다니엘**이 **로단**을 설복시켜서 **아버지**가 인격을 지니신 분임을 믿게 했으며, 다음과 같은 추론(推論) 단계로 그 **그리스인**의 관점을 바꾸기에 성공했다:

1. **낙원**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분의 다른 존재와 대등하게 소통하시며, 이 두 분은 그와 온전히 동등하고 전적으로 비슷하시다. **삼위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그리스인**은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체일 가능성을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됐다. (이 논의를 후일

161:1.1 (1783.3) There was one matter on which Rodan and the two apostles did not see alike, and that was the personality of God. Rodan readily accepted all that was presented to him regarding the attributes of God, but he contended that the Father in heaven is not, cannot be, a person as man conceives personality. While the apostles found themselves in difficulty trying to prove that God is a person, Rodan found it still more difficult to prove he is not a person.

161:1.2 (1783.4) Rodan contended that the fact of personality consists in the coexistent fact of full an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beings of equality, beings who are capable of sympathetic understanding. Said Rodan: “In order to be a person, God must have symbols of spirit communication which would enable him to become fully understood by those who make contact with him. But since God is infinite and eternal, the Creator of all other beings, it follows that, as regards beings of equality, God is alone in the universe. There are none equal to him; there are none with whom he can communicate as an equal. God indeed may be the source of all personality, but as such he is transcendent to personality, even as the Creator is above and beyond the creature.”

161:1.3 (1783.5) This contention greatly troubled Thomas and Nathaniel, and they had asked Jesus to come to their rescue, but the Master refused to enter into their discussions. He did say to Thomas: “It matters little what idea of the Father you may entertain as long as you are spiritually acquainted with the ideal of his infinite and eternal nature.”

161:1.4 (1784.1) Thomas contended that God does communicate with man, and therefore that the Father is a person, even within the definition of Rodan. This the Greek rejected on the ground that God does not reveal himself personally; that he is still a mystery. Then Nathaniel appealed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God, and that Rodan allowed, affirming that he had recently had similar experiences, but these experiences, he contended, proved only the reality of God, not his personality.

161:1.5 (1784.2) By Monday night Thomas gave up. But by Tuesday night Nathaniel had won Rodan to believe in the personality of the Father, and he effected this change in the Greek's views by the following steps of reasoning:

161:1.6 (1784.3) 1. The Father in Paradise does enjoy e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at least two other beings who are fully equal to himself and wholly like himself —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In view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Greek was compelled to concede the personality

에 고찰한 것이, 열두 사도의 정신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확대된 생각으로 인도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예수**가 **영원한 아들**이라고 믿었다.)

2.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인격을 형태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세 **하나님** 모두가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증을 성립시켰으며, 사람과의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역량과,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

3. **예수**께서는, 사람과 상호 연합하고 완전히 의사소통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한 대화와, 공감적{共感的}으로 이해하는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사람과 동시에 이해하는 대화를 지속하며, **예수**께서 대화에 사용한 상징의 의미를,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납득하기 때문에, 상호 의사소통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이 인격의 속성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동시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동일한 것에 관계된 두 가지 역시 서로 관계있다는 것.

4. 인격은, 인간의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님** 역시, 신성한 실체와 무한한 가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성하고 무한한 인격, 즉 사람의 인격 개념과 정의를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초월할지라도 여전히 실제 인격체이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격체시라는 것.

5. **하나님**은, 모든 인격의 **창조주**이고 모든 인격의 운명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 **로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 논증을 들은 **로단**이 말했다: “내가 이제 확신한다. 그런 믿음에 대해, 확대된 여러 가치, 즉 초인적인, 초월적인, 최상의, 무한한, 영원한, 최종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을 인격의 의미에 추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인격자시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확신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인격체 이상의 존재이며, 그 이하의 존재이실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는 이 논증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는 **아버지**가 몸소 계시된 분이요, 논

possibi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t was the later consideration of these discussions which led to the enlarged conception of the Trinity in the minds of the twelve apostles. Of course, it was the general belief that Jesus was the Eternal Son.)

161:1.7 (1784.4) 2. Since Jesus was equal with the Father, and since this Son had achieve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to his earth children, such a phenomenon constituted proof of the fact, and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by all three of the Godheads and forever settled the question regarding the ability of God to communicate with man and the possibility of man's communicating with God.

161:1.8 (1784.5) 3. That Jesus was on terms of mutual association and perfect communication with man;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That the relation of Son and Father presupposes equality of communication and mutuality of sympathetic understanding; that Jesus and the Father were one. That Jesus maintained at one and the same time understanding communication with both God and man, and that, since both God and man comprehended the meaning of the symbols of Jesus' communication, both God and man possessed the attributes of personality in so far as the requirements of the ability of intercommunication were concerned. That the personality of Jesus demonstrated the personality of God, while it proved conclusively the presence of God in man. That two things which are related to the same thing are related to each other.

161:1.9 (1784.6) 4. That personality represents man's highest concept of human reality and divine values; that God also represents man's highest concept of divine reality and infinite values; therefore, that God must be a divine and infinite personality, a personality in reality although infinitely and eternally transcending man's concept and definition of personality, but nevertheless always and universally a personality.

161:1.10 (1784.7) 5. That God must be a personality since he is the Creator of all personality and the destiny of all personality. Rodan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eaching of Jesus, “Be you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161:1.11 (1784.8) When Rodan heard these arguments, he said: “I am convinced. I will confess God as a person if you will permit me to qualify my confession of such a belief by attaching to the meaning of personality a group of extended values, such as superhuman, transcendent, supreme, infinite, eternal, final, and universal. I am now convinced that, while God must be infinitely more than a personality, he cannot be anything less. I am satisfied to end the argument and to accept Jesus as the personal revelation of the

리와 이성 및 철학에서 충족되지 못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분임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다.”

Father and the satisfaction of all unsatisfied factors in logic, reason, and philosophy.”

2. 예수의 신성한 본성

나다니엘과 **도마**는 천국 복음에 대한 **로단**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했지만, 논의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야 공개적으로 발표된 고리인, **예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주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해 공통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것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했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수**의 사역 중에는 놀랄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와 어울리셨던 그의 생애는 인간 우정의 이상(理想)을 예증하며; 오직 신성한 존재만이 그런 인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알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참되게 이타적인 인격자다. 죄인조차 친구로 삼으며; 자기 원수도 사랑한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충실하다. 주저함 없이 우리를 책망하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당신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매혹될 것이다. 최근 여러 해 동안 그의 사명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함에도, 그는 여전히 충실한 친구였다. 아첨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히 대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인정이 많다. 자기 생애와 그 밖의 모든 것도 우리와 공유한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며; 모든 것을 공유한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 이렇게 괴로운 환경에서 그토록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3. 우리는, **예수**께서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으며;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지혜는 특출 나며; 그의 경건성은 뛰어나다. 그는 매일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일치되게 산다. **아버지**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뉘우친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가 변함없이 죄 없음을 믿는다. 인간일 뿐인 자가 그런 삶을 산다고 공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살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그가 그러함을 안다. 우리의 경건성은 회개에서 생기지만, 그의 경건성은 정의에서 생긴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하며, 병을 치유한다. 단순히 인간이라면, 죄를 용서한다고 제 정신으로 공언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것은 신성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때부터 그는 자신의 정당함에서 완전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의의 성숙함을 나타

2. THE DIVINE NATURE OF JESUS

161:2.1 (1785.1) Since Nathaniel and Thomas had so fully approved Rodan's vi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re remained only one more point to consider, the teaching dealing with the divine nature of Jesus, a doctrine only so recently publicly announced. Nathaniel and Thomas jointly presented their view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Master, and the following narrative is a condensed, rearranged, and restated presentation of their teaching:

161:2.2 (1785.2) 1. Jesus has admitted his divinity, and we believe him. Many remarkable things have happened in connection with his ministry which we can understand only by believing that he is the Son of God as well as the Son of Man.

161:2.3 (1785.3) 2. His life association with us exemplifies the ideal of human friendship; only a divine being could possibly be such a human friend. He is the most truly unselfish person we have ever known. He is the friend even of sinners; he dares to love his enemies. He is very loyal to us. While he does not hesitate to reprove us, it is plain to all that he truly loves us. The better you know him, the more you will love him. You will be charmed by his unswerving devotion. Through all these years of our failure to comprehend his mission, he has been a faithful friend. While he makes no use of flattery, he does treat us all with equal kindness; he is invariably tender and compassionate. He has shared his life and everything else with us. We are a happy community; we share all things in common. We do not believe that a mere human could live such a blameless life under such trying circumstances.

161:2.4 (1785.4) 3. We think Jesus is divine because he never does wrong; he makes no mistakes. His wisdom is extraordinary; his piety superb. He lives day by day in perfect accord with the Father's will. He never repents of misdeeds because he transgresses none of the Father's laws. He prays for us and with us, but he never asks us to pray for him. We believe that he is consistently sinless. We do not think that one who is only human ever professed to live such a life. He claims to live a perfect life, and we acknowledge that he does. Our piety springs from repentance, but his piety springs from righteousness. He even professes to forgive sins and does heal diseases. No mere man would sanely profess to forgive sin; that is a divine prerogative. And he has seemed to be thus perfect in his righteousness from the times of our first contact with him. We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but our Master exhibits

낸다. 모든 사람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요소를 인지한다. 그럼에도 그의 경건성은 눈에 거슬리거나 허식적인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는 온유하면서도 대담하다. 우리가 그의 신성을 믿도록 용납하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진 자들 가운데 최고의 위선자요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4. 그의 성품의 독특함과 자신의 감정적 통제와 완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결합임을 확신토록 했다. 그는 인간의 궁핍한 처지에 틀림없이 응답하며; 고통은 반드시 그에게 상달된다. 그의 동정심은,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또는 영적 비애를 막론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는, 동료들 속에 있는 신앙, 또는 다른 어떤 호의라도 즉시 알아보고 관대하게 인정한다.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또한 동시에 매우 자비롭고 너그럽다. 사람의 영적 완고함을 한탄하면서도,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자 할 때에는 기뻐한다.

5. 그는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마음이 고대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정한 영성에 항상 동정한다. 우리의 모든 인간 감정을 그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감정은 장엄하게 장식돼 있다. 선을 강렬히 사랑하지만, 죄는 그만큼 미워한다. **신격**의 현존으로서 초인적 의식을 갖는다. 그도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처럼 이론다. 어떤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보이며; 이제 그는 자신의 죽음, 즉 자신이 장차 영광 받을 것이라는 어떤 신비한 내용까지도 말씀한다. 친절함 동시에, 대담하고 용감하다. 그는 의무를 행하기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그의 초인적 지식의 현상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다. **주님**은, 자신의 직접적인 현존이 없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을, 거의 매일 드러낸다. 또한 동역자들의 생각을 아는 것 같다. 천상의 인격체들과 교류하는 것이 분명하며; 확실히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영적 수준에서 산다. 그의 특유한 이해력은 무엇이든지 통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7. **주님**은 최근에 이르러서 자신의 초인간성을 담대히 증거 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안수 받은 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는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왔음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는 신성한 교사의 권위로 말씀한다. **주님**은 오늘날의 종교적 교훈의 잘못을 담대히 지적하며, 적극적 권위로 새로운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이며 권위가 있다. **세례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했다. 그는 자신 속에서 아주 충족

maturity of righteousness to start with. All men, good and evil, recognize these elements of goodness in Jesus. And yet never is his piety obtrusive or ostentatious. He is both meek and fearless. He seems to approve of our belief in his divinity. He is either what he professes to be, or else he is the greatest hypocrite and fraud the world has ever known. We are persuaded that he is just what he claims to be.

161:2.5 (1785.5) 4. The uniqueness of his character and the perfection of his emotional control convince us that he is a combination of humanity and divinity. He unfailingly responds to the spectacle of human need; suffering never fails to appeal to him. His compassion is moved alike by physical suffering, mental anguish, or spiritual sorrow. He is quick to recognize and generous to acknowledge the presence of faith or any other grace in his fellow men. He is so just and fair and at the same time so merciful and considerate. He grieves over the spiritual obstinacy of the people and rejoices when they consent to see the light of truth.

161:2.6 (1786.1) 5. He seems to know the thoughts of men's minds and to understand the longings of their hearts. And he is always sympathetic with our troubled spirits. He seems to possess all our human emotions, but they are magnificently glorified. He strongly loves goodness and equally hates sin. He possesses a superhuman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Deity. He prays like a man but performs like a God. He seems to foreknow things; he even now dares to speak about his death, some mystic reference to his future glorification. While he is kind, he is also brave and courageous. He never falters in doing his duty.

161:2.7 (1786.2) 6. We are constantly impressed by the phenomenon of his superhuman knowledge. Hardly does a day pass but something transpires to disclose that the Master knows what is going on away from his immediate presence. He also seems to know about the thoughts of his associates. He undoubtedly has communion with celestial personalities; he unquestionably lives on a spiritual plane far above the rest of us. Everything seems to be open to his unique understanding. He asks us questions to draw us out, not to gain information.

161:2.8 (1786.3) 7. Recently the Master does not hesitate to assert his superhumanity. From the day of our ordination as apostles right on down to recent times, he has never denied that he came from the Father above. He speaks with the authority of a divine teacher. The Master does not hesitate to refute the religious teachings of today and to declare the new gospel with positive authority. He is assertive, positive, and authoritative. Even John the Baptist, when he

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람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다. 용감하면서도 자존심과는 거리가 멀다.

8.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자주 말씀한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듯이 부지런히 선을 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가장 놀랄만한 주장, 즉 자신이 신성하지 않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말을 한다. 그가 언젠가 선언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신성을 확실히 주장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라고 공언한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히 연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또한 행한다. 그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연합에 대해 암시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참으로 확신하는 것 같으며, 이런 관계를 사실적인 방법으로 말한다.

9.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그는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내용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모든 신비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임을 잘 알며,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가 또한 신성한 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성함을 믿는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가진 회담을 끝내고 나서, 동료 사도들과 합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했으며, 그 주 금요일에 도착했다. 이 토론은 이 세 신자 모두의 삶에서 큰 체험이 됐고, 다른 사도들은 이 체험에 대한 **나다니엘**과 **도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거기에 있는 **메간타** 학교에서 본인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는 하늘 나라를 위한 후대의 직무에서 위대한 인물이 됐으며;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신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죽었다.

heard Jesus speak, declar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He seems to be so sufficient within himself. He craves not the support of the multitude; he is indifferent to the opinions of men. He is brave and yet so free from pride.

161:2.9 (1786.4) 8. He constantly talks about God as an ever-present associate in all that he does. He goes about doing good, for God seems to be in him. He makes the most astounding assertions about himself and his mission on earth, statements which would be absurd if he were not divine. He once declared, “Before Abraham was, I am.” He has definitely claimed divinity; he professes to be in partnership with God. He well-nigh exhausts the possibilities of language in the reiteration of his claims of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 heavenly Father. He even dares to assert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He says that anyone who has seen him has seen the Father. And he says and does all these tremendous things with such childlike naturalness. He alludes to his association with the Father in the same manner that he refers to his association with us. He seems to be so sure about God and speaks of these relations in such a matter-of-fact way.

161:2.10 (1786.5) 9. In his prayer life he appears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his Father. We have heard few of his prayers, but these few would indicate that he talks with God, as it were, face to face. He seems to know the future as well as the past. He simply could not be all of this and do all of these extraordinary things unless he were something more than human. We know he is human, we are sure of that, but we are almost equally sure that he is also divine. We believe that he is divine. We are convinced that he i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161:2.11 (1787.1) When Nathaniel and Thomas had concluded their conferences with Rodan, they hurried on toward Jerusalem to join their fellow apostles, arriving on Friday of that week. This had been a great experience in the lives of all three of these believers, and the other apostles learned much from the recounting of these experiences by Nathaniel and Thomas.

161:2.12 (1787.2) Rodan made his way back to Alexandria, where he long taught his philosophy in the school of Meganta. He became a mighty man in the later affair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was a faithful believer to the end of his earth days, yielding up his life in Greece with others when the persecutions were at their height.

3. 예수의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신성에 대한 의식(意識)은, **예수**께서 세례 받던 때까지 그의 정신 속에서 점차 자라갔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 인간_이전(以前)의 현존, 그

3. JESUS' HUMAN AND DIVINE MINDS

161:3.1 (1787.3) Consciousness of divinity was a gradual growth in the mind of Jesus up to the occasion of his baptism. After he became fully

리고 우주 대권{大權}을 완전히 자각한 후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 의식을 여러 가지로 제한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오직 인간 정신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둘 다 사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맡겨졌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때로는 그가 인간 지능에 들어있는 정보만 사용한 듯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성한 의식 가운데 초인적 내용물을 활용함으로써만 가능한, 그토록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행동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의식{意識}을 의지적으로 스스로 제한시키실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분의 독특한 업적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동역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의 본질을 알고 있었음을 잘 안다. 그가 그들의 사고{思考}를 간파할 수 있고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추종자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는, 사도 제자들의 정신 속에 수용된 인간 개념을 너무 초월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본인의 신성한 의식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습관, 그리고 미리 알고 생각을 꿰뚫어보는 것을 인간 동역자들에게 숨기는 기법,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지, 우리는 아주 난감한 상태다. 우리는 그가 이 두 기법을 다 사용했다고 확신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마다 어떤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가 인간 의식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갖고 행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며; 그때 우리는, **주님**이 천상의 무리의 지휘자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고자 했고, 신성한 정신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음을 분간하려 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무수한 많은 경우에,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이 겹으로 보기에 완전히 결합된 가운데 활성화되어, 사람과 **하나님**의 혼합된 인격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이 그런 현상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이며; 이 신비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self-conscious of his divine nature, prehuman existence, and universe prerogatives, he seems to have possessed the power of variously limiting his human consciousness of his divinity. It appears to us that from his baptism until the crucifixion it was entirely optional with Jesus whether to depend only on the human mind or to utilize the knowledge of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At times he appeared to avail himself of only that information which was resident in the human intellect. On other occasions he appeared to act with such fullness of knowledge and wisdom as could be afforded only by the utilization of the superhuman content of his divine consciousness.

161:3.2 (1787.4) We can understand his unique performances only by accepting the theory that he could, at will, self-limit his divinity consciousness. We are fully cognizant that he frequently withheld from his associates his foreknowledge of events, and that he was aware of the nature of their thinking and planning. We understand that he did not wish his followers to know too fully that he was able to discern their thoughts and to penetrate their plans. He did not desire too far to transcend the concept of the human as it was held in the minds of his apostles and disciples.

161:3.3 (1787.5) We are utterly at a loss to differentiate between his practice of self-limiting his divine consciousness and his technique of concealing his preknowledge and thought discernment from his human associates. We are convinced that he used both of these techniques, but we are not always able, in a given instance, to specify which method he may have employed. We frequently observed him acting with only the human content of consciousness; then would we behold him in conference with the directors of the celestial hosts of the universe and discern the undoubted functioning of the divine mind. And then on almost numberless occasions did we witness the working of this combined personality of man and God as it was activated by the apparent perfect union of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This is the limit of our knowledge of such phenomena; we really do not actually know the full truth about this mystery.

제162편. 초막절 축제

⇨ 161

유랜시아 책

163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62편
초막절 축제

섹션

소개

1.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2. 성전에서 첫 강연
3. 간음 중에 잡힌 여자
4. 초막절 축제
5. 세상의 빛에 관한 설교
6.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7. 영적 자유에 관한 강론
8.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함
9. 베들레헴에서 아브넬과 함께

PAPER 162

AT THE FEAST OF TABERNACL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angers of the Visit to Jerusalem
2. The First Temple Talk
3. The Woman Taken in Adultery
4. The Feast of Tabernacles
5. Sermon on the Light of the World
6. Discourse on the Water of Life
7. The Discourse on Spiritual Freedom
8. The Visit with Martha and Mary
9. At Bethlehem with Abner

소개

열 명의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지름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호수의 동쪽 기슭을 따라 **스키토폴리스** 길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변두리로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해질녘에 **빌립**과 **마태**를 **길보아산** 동쪽 비탈에 있는 한 마을에 보내서, 일행을 위한 잠자리를 구하게 했다. 마침 이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 보통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깊은 반감을 가졌으며, 매우 많은 사람이 초막절 축제를 위해 여행하는 특별한 시기였으므로 이런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알지 못했고, 그와 그 동역자들이 **유대인**이므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마태**와 **빌립**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환영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통보하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로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빌립과 **마태**가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INTRODUCTION

162:0.1 (1788.1) WHEN Jesus started up to Jerusalem with the ten apostles, he planned to go through Samaria, that being the shorter route. Accordingly, they passed down the eastern shore of the lake and, by way of Scythopolis, entered the borders of Samaria. Near nightfall Jesus sent Philip and Matthew over to a village on the eastern slopes of Mount Gilboa to secure lodging for the company. It so happened that these villagers were greatly prejudiced against the Jews, even more so than the average Samaritans, and these feelings were heightened at this particular time as so many were on their way to the feast of tabernacles. These people knew very little about Jesus, and they refused him lodging because he and his associates were Jews. When Matthew and Philip manifested indignation and informed these Samaritans that they were declining to entertain the Holy One of Israel, the infuriated villagers chased them out of the little town with sticks and stones.

162:0.2 (1788.2) After Philip and Matthew had returned to their fellows and reported how they had been

어떻게 마을에서 쫓겨났는지 보고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말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무례하고 완악한 **사마리아인**을 삼켜 버리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수심 가득한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해 엄히 꾸짖었다; “너희가 보여주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모르는구나. 복수하는 자는 하늘 나라의 걸모습도 쳐다볼지 못한다.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요단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파적 편견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 아들**을 환대하는 영광을 스스로 거부했다.

예수와 열 사도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했고,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수요일 늦은 밤이었다. **로단**과 회담하느라 뒤에 남았던 **도마와 나다니엘**이 금요일에 도착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음 달 (10월) 끝까지 약 4주 반 동안 머물렀다. **예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간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짧은 방문은 초막절 축제 기간에 이뤄졌다. **예수**께서는 10월의 상당히 많은 날을 **아브넬** 및 그 동역자들과 함께 **베들레헬**에서 보냈다.

1.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그들이 **갈릴리**에서 피신하기 훨씬 전에,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인**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에 전파된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간청했지만; 실제로 가르치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자, 그의 안전을 걱정하게 됐다. 사도들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려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최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선포한 것이 생각났으므로, 초막절에 참석하려는 **주님**의 갑작스런 결정에 완전히 대경실색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들이 전에 간청할 때마다 **주님**은,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으로 만류하는 그들에게, 오직 “그러나 때가 임했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 축제 기간에 여러 번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갔고, 성전에서 공공연히 가르쳤다. 사도들이 그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는 이렇게 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랫동안 간청했던 그들이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음을 충분히 알고,

driven out of the village, James and John stepped up to Jesus and said: “Master, we pray you to give us permission to bid fire come down from heaven to devour these insolent and impenitent Samaritans.” But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of vengeance, he turned upon the sons of Zebedee and severely rebuked them: “You know not what manner of attitude you manifest. Vengeance savors not of the outlook of the kingdom of heaven. Rather than dispute, let us journey over to the little village by the Jordan ford.” Thus because of sectarian prejudice these Samaritans denied themselves the honor of showing hospitality to the Creator Son of a universe.

162:0.3 (1788.3) Jesus and the ten stopped for the night at the village near the Jordan ford. Early the next day they crossed the river and continued on to Jerusalem by way of the east Jordan highway, arriving at Bethany late Wednesday evening. Thomas and Nathaniel arrived on Friday, having been delayed by their conferences with Rodan.

162:0.4 (1788.4) Jesus and the twelve remained in the vicinity of Jerusalem until the end of the following month (October), about four and one-half weeks. Jesus himself went into the city only a few times, and these brief visits were made during the days of the feast of tabernacles. He spent a considerable portion of October with Abner and his associates at Bethlehem.

1. THE DANGERS OF THE VISIT TO JERUSALEM

162:1.1 (1788.5) Long before they fled from Galilee, the followers of Jesus had implored him to go to Jerusalem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order that his message might have the prestige of having been preached at the center of Jewish culture and learning; but now that he had actually come to Jerusalem to teach, they were afraid for his life. Knowing that the Sanhedrin had sought to bring Jesus to Jerusalem for trial and recalling the Master's recently reiterated declarations that he must be subject to death, the apostles had been literally stunned by his sudden decision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To all their previous entreaties that he go to Jerusalem he had replied, “The hour has not yet come.” Now, to their protests of fear he answered only, “But the hour has come.”

162:1.2 (1788.6)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went boldly into Jerusalem on several occasions and publicly taught in the temple. This he did in spite of the efforts of his apostles to dissuade him. Though they had long urged him to proclaim his message in Jerusalem, they now feared to see him enter the city at this time, knowing full well that

이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봤다.

예루살렘에 모습을 드러낸 **예수**의 대담한 행동만큼, 추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사건은 없었다.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사도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께서 서둘러 **베니게로** 피신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주님**이 움직일 때 그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다. 따르는 무리의 반대 의견에도, 초막절 축제가 한창인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나타난 것은, 그가 겁먹었다든가 비겁하다든가 하는 모든 쪽덕거림을 깨끗이 없애기에 충분했다.

초막절 축제 기간에, **로마 제국** 여러 지방에서 온 신자 수천 명이 **예수**를 봤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은 자기 고향에도 천국이 이뤄지게 되는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베다니**에 다녀오기까지 했다.

그 축제 기간에 **예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자체의 계층 안에서 은밀하게 의견이 달라진 결과로, **산헤드린** 회원들 자신에게 엄습한 두려움이었다.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다수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집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축제 기간 중에는 그를 체포하지 말자고 단호히 반대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그를 믿거나 적어도 그가 후원하는 영적 운동에 호의를 가졌다.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이 **유대지방** 전역에서 수고함으로써 천국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므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감히 드러내놓고 방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한 달 또는 두 달 전 같았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공공연히 나타난 **예수**의 대담한 배짱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겁을 줬으며; 그들은 이런 대담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산헤드린**은 **주님**을 체포하려고 미약하나마 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런 노력에 대한 결과는 없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기치 않은 **예수**의 **예루살렘** 출현에 너무 놀란 나머지, **로마**의 권세자들로부터 약속된 보호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억측하기까지 했다.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빌립**이 **예수**를 따르는 자나 다름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산헤드린** 회원들은, **빌립**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예수**께서 갑자기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로마** 관리들과 비밀리에 어떤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수였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그들의 관할 구역을 떠난 후였다.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bent on bringing about his death.

162:1.3 (1788.7) Jesus' bold appearance in Jerusalem more than ever confused his followers. Many of his disciples, and even Judas Iscariot, the apostle, had dared to think that Jesus had fled in haste into Phoenicia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and Herod Antipas. They failed to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ter's movements. His presence in Jerusalem at the feast of tabernacles, even in opposition to the advice of his followers, sufficed forever to put an end to all whisperings about fear and cowardice.

162:1.4 (1789.1)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thousands of believers from all parts of the Roman Empire saw Jesus, heard him teach, and many even journeyed out to Bethany to confer with him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in their home districts.

162:1.5 (1789.2) There were many reasons why Jesus was able publicly to preach in the temple courts throughout the days of the feast, and chief of these was the fear that had come over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as a result of the secret division of sentiment in their own ranks. It was a fact that many of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either secretly believed in Jesus or else were decidedly averse to arresting him during the feast, when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were present in Jerusalem, many of whom either believed in him or were at least friendly to the spiritual movement which he sponsored.

162:1.6 (1789.3) The efforts of Abner and his associates throughout Judea had also done much to consolidate sentiment favorable to the kingdom, so much so that the enemies of Jesus dared not be too outspoken in their opposition.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Jesus could publicly visit Jerusalem and live to go away. One or two months before this he would certainly have been put to death.

162:1.7 (1789.4) But the audacious boldness of Jesus in publicly appearing in Jerusalem overawed his enemies; they were not prepared for such a daring challenge. Several times during this month the Sanhedrin made feeble attempts to place the Master under arrest, but nothing came of these efforts. His enemies were so taken aback by Jesus' unexpected public appearance in Jerusalem that they conjectured he must have been promised protection by the Roman authorities. Knowing that Philip (Herod Antipas's brother) was almost a follower of Jesus,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speculated that Philip had secured for Jesus promises of protection against his enemies. Jesus had departed from their jurisdiction before they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they had been mistaken in the

그들이 **마가단**을 떠날 때 **예수**께서 초막절 축제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열두 사도 뿐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 나타나 공공연히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축제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멀리서 그에 대해 들었던 순례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 및 성전 뜰에서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됐다. 이 교훈은, **유대인**은 물론 전 세계 민족에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참으로 공인된 선포, 즉 정식 선포였다.

주님의 교훈을 들었던 대중의 견해가 여럿으로 나뉘었다. 더러는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더러는 선지자라고 했으며;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또 더러는 이상한 교리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라고 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신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 놓고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망설임 반면, **예수**께 동조하는 자들은 **산헤드린**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알았으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여 공공연히 그를 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랍비들의 학교에서 교육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적들조차 그의 가르침에 감탄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의 본질에 대해 날마다 점점 더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친구들 가운데서 설교할 때조차,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놀랄 정도로 단언하는 것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2. 성전에서 첫 강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첫 날 오후에, 새벽음으로 인한 해방에 대해, 그리고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앉았는데, 어느 호기심 많은 자가 말씀을 막으면서 질문했다: “선생님, 당신은 랍비의 학문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토록 유창하게 **성서**를 인용하고 사람을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준 자는 없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다. 내 **아버지** 뜻을 정말로 행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belief that his sudden and bold appearance in Jerusalem had been due to a secret understanding with the Roman officials.

162:1.8 (1789.5) Only the twelve apostles had known that Jesus intended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when they had departed from Magadan. The other followers of the Master were greatly astonished when he appeared in the temple courts and began publicly to teach, and the Jewish authorities were surprised beyond expression when it was reported that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162:1.9 (1790.1) Although his disciples had not expected Jesus to attend the feast, the vast majority of the pilgrims from afar who had heard of him entertained the hope that they might see him at Jerusalem. And they were not disappointed, for on several occasions he taught in Solomon's Porch and elsewhere in the temple courts. These teachings were really the official or formal announcement of the divinity of Jesus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whole world.

162:1.10 (1790.2) The multitudes who listened to the Master's teachings were divided in their opinions. Some said he was a good man; some a prophet; some that he was truly the Messiah; others said he was a mischievous meddler, that he was leading the people astray with his strange doctrines. His enemies hesitated to denounce him openly for fear of his friendly believers, while his friends feared to acknowledge him openly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knowing that the Sanhedrin was determined to put him to death. But even his enemies marveled at his teaching, knowing that he had not been instructed in the schools of the rabbis.

162:1.11 (1790.3) Every time Jesus went to Jerusalem, his apostles were filled with terror. They were the more afraid as, from day to day, they listened to his increasingly bold pronouncements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on earth. They were unaccustomed to hearing Jesus make such positive claims and such amazing assertions even when preaching among his friends.

2. THE FIRST TEMPLE TALK

162:2.1 (1790.4) The first afternoon that Jesus taught in the temple, a considerable company sat listening to his words depicting the liberty of the new gospel and the joy of those who believe the good news, when a curious listener interrupted him to ask: “Teacher, how is it you can quote the Scriptures and teach the people so fluently when I am told that you are untaught in the learning of the rabbis?” Jesus replied: “No man has taught me the truths which I declare to you. And this teaching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If any man really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나 나에 관해 말한 것이거나, 내 가르침을 분명히 알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빛에 들어가고 애쓰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빛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여전히 정직하게 추구하는 자가, 너희 중에 몇이나 되느냐? 모세는 율법에서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럼에도 너희 중에는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

인파가 이 말을 듣자, 그들 중에 언쟁이 벌어졌다. 더러는 예수를 미쳤다고 했으며; 더러는 그가 마귀와 한편이라고 했다. 또 더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갈릴리 선지자라고 했다. 더러는 종교 기관도 감히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또 더러는 그들을 예수로 믿게 됐으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은 후에, 인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물었다, "통치자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 "통치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천국의 기쁜 소식, 즉 이 선생님이 어떤 대가(代價)를 치려도 옹호하기로 결정한 형식적 종교 예식의 견디기 힘든 전통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내가 가르치는 것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노예가 됐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탐했지만, 내가 안식일에 중환자를 완전히 고쳤을 때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믿게 되면, 그들의 전통적 종교 체계가 전복되어 영원히 무너지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더욱 영광스런 이 복음을 딱 잘라 거절하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얻은 것에 대한 권세를 저희가 이처럼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겠는데: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이 교훈의 참된 정신으로 판단하며; 올바르게 판단하라."

그러자 다른 질문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신비하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주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주장한다. 나도 내 주장이 진실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 지식에서 풍성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desires to do my Father's will, he shall certainly know about my teaching, whether it be God's or whether I speak for myself. He who speaks for himself seeks his own glory, but when I declare the words of the Father, I thereby seek the glory of him who sent me. But before you try to enter into the new light, should you not rather follow the light you already have? Moses gave you the law, yet how many of you honestly seek to fulfill its demands? Moses in this law enjoins you, saying, 'You shall not kill'; notwithstanding this command some of you seek to kill the Son of Man."

162:2.2 (1790.5) When the crowd heard these words, they fell to wrangling among themselves. Some said he was mad; some that he had a devil. Others said this was indeed the prophet of Galilee whom the scribes and Pharisees had long sought to kill. Some said the religious authorities were afraid to molest him; others thought that they laid not hands upon him because they had become believers in him. After considerable debate one of the crowd stepped forward and asked Jesus, "Why do the rulers seek to kill you?" And he replied: "The rulers seek to kill me because they resent my teaching about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 gospel that sets men free from the burdensome traditions of a formal religion of ceremonies which these teachers are determined to uphold at any cost. They circumci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the Sabbath day, but they would kill me because I once on the Sabbath day set free a man held in the bondage of affliction. They follow after me on the Sabbath to spy on me but would kill me because on another occasion I chose to make a grievously stricken man completely whole on the Sabbath day. They seek to kill me because they well know that, if you honestly believe and dare to accept my teaching, their system of traditional religion will be overthrown, forever destroyed. Thus will they be deprived of authority over that to which they have devoted their lives since they steadfastly refuse to accept this new and more glorious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now do I appeal to every one of you: Judge not according to outward appearances but rather judge by the true spirit of these teachings; judge righteously."

162:2.3 (1791.1) Then said another inquirer: "Yes, Teacher, we do look for the Messiah, but when he comes, we know that his appearance will be in mystery. We know whence you are. You have been among your brethren from the beginning. The deliverer will come in power to restore the throne of David's kingdom. Do you really claim to be the Messiah?" And Jesus replied: "You claim to know me and to know whence I am. I wish your claims were true, for indeed then would you find abundant life in that knowledge. But I declare that I have not come to you for myself; I have been sent by the Father, and he who sent me is true and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내게 듣기를 거부함으로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의 대리인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군중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례 이후의 **예수**의 활동이 모든 **유대인**에게 잘 알려졌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저 선생님이 **갈릴리**에서 왔고, 우리가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자가 올 때, 과연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께서 이미 행한 굉장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바리새인**과 그 대리인들은 지도자들과 의논했고, **예수**께서 성전 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자고 결정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대개 **로마** 권세자들이 어떤 특권을 약속했다고 믿었으므로, **예수**와 충돌하기를 피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의 담대함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산헤드린** 관원들은 이 소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로마** 통치자들이 그런 일을 **유대** 국가의 최고{最高} 통치 기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론했다.

따라서, **산헤드린**에 소속된 관원인 **에벨**이,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예수**를 잡아오도록 파견됐다. **에벨**이 **예수**께 다가가자 **주님**이 말씀했다: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가까이 와서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나를 체포하도록 네가 파견됐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대적하지 않으며; 오직 네 상관들의 명령 때문에 왔을 뿐이고, **유대** 통치자들은 나를 비밀히 죽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나는 너희 가운데 누구도 악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러므로 나는 전통이라는 무지와 선입견이라는 결박에서 너희를 구해 줄 날을 오랫동안 고대했다. 나는 너희에게, 삶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제시한다. 나는 죄의 속박을 깨고 악에서 구출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포한다. 너희에게 생명을 갖게 하되, 영원히 갖게 하려고 내가 왔다. 너희는 동요하게 하는 내 교훈과 나 자신을 없애려고 한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임을 너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께로 나는 이제 곧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faithful. By refusing to hear me, you are refusing to receive Him who sends me. You, if you will receive this gospel, shall come to know Him who sent me. I know the Father, for I have come from the Father to declare and reveal him to you.”

162:2.4 (1791.2) The agents of the scribes wanted to lay hands upon him, but they feared the multitude, for many believed in him. Jesus' work since his baptism had become well known to all Jewry, and as many of these people recounted these things, they said among themselves: “Even though this teacher is from Galilee, and even though he does not meet all of our expectations of the Messiah, we wonder if the deliverer, when he does come, will really do anything more wonderful than this Jesus of Nazareth has already done.”

162:2.5 (1791.3) When the Pharisees and their agents heard the people talking this way, they took counsel with their leaders and decided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forthwith to put a stop to these public appearances of Jesus in the temple courts. The leaders of the Jews, in general, were disposed to avoid a clash with Jesus, believing that the Roman authorities had promised him immunity. They could not otherwise account for his boldness in coming at this time to Jerusalem; but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did not wholly believe this rumor. They reasoned that the Roman rulers would not do such a thing secretly and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highest governing body of the Jewish nation.

162:2.6 (1791.4) Accordingly, Eber, the proper officer of the Sanhedrin, with two assistants was dispatched to arrest Jesus. As Eber made his way toward Jesus, the Master said: “Fear not to approach me. Draw near while you listen to my teaching. I know you have been sent to apprehend me, but you should understand that nothing will befall the Son of Man until his hour comes. You are not arrayed against me; you come only to do the bidding of your masters, and even these rulers of the Jews verily think they are doing God's service when they secretly seek my destruction.

162:2.7 (1792.1) “I bear none of you ill will. The Father loves you, and therefore do I long for your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prejudice and the darkness of tradition. I offer you the liberty of life and the joy of salvation. I proclaim the new and living way, the deliverance from evil and the breaking of the bondage of sin. I ha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and have it eternally. You seek to be rid of me and my disquieting teachings. If you could only realize that I am to be with you only a little while! In just a short time I go to Him who sent me into this world. And then will many of you diligently seek me, but you shall not discover my presence, for where I am about to go you cannot come. But all who truly seek to find me shall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줄 생명을 언젠가 달성할 것이다.”

조소하던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말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어디를 말하는가? **그리스인**에게 가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우리를 곧 떠나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에벨과 그 부하들은 **예수**를 체포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집합 장소로 돌아갔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오지 않았으므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에벨**과 부하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자, **에벨**은: “많은 사람이 그를 믿으므로, 대중 한가운데서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범상치 않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가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최고 관리들은 깜짝 놀라서, **에벨**에게 욕하면서 말했다: “너도 타락했느냐? 그 거짓말쟁이를 믿으려고 하느냐? 배운 자나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가운데, 그의 교활한 교훈에 속은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율법도 선지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대중의 행태에, 네가 어찌하여 동조하게 됐느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에벨**이 대답했다: “주인님들, 설령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대중에게 자비와 희망에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안을 줍니다. 그분이 비록 **성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이 교훈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의 법은 공명정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산헤드린**의 우두머리가 **에벨**에게 격노하면서 그를 향해 말했다: “네가 아주 미쳤느냐? 너도 혹시 **갈릴리**에서 왔느냐? **성서**를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어떤 선지자도 나오는 법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산헤드린은 혼란스런 가운데 해산됐고, **예수**께서는 잠자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갔다.

3.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번 **예루살렘** 방문 기간에, **예수**께서는 악하다고 소문난 어떤 여자를 대하게 됐는데, 그 여자를 고소하는 자들과 **예수**의 적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다. 이 사건에 대해 너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기록에 의하면, 서기관 및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예수** 앞으로 끌고 왔으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부도덕에 대한 죄의식을 자각하도록 **예수**께서 처리한 것처럼 돼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전통에 충성함으로써 영적으로 눈멀고 지

sometime attain the life that leads to my Father's presence.”

162:2.8 (1792.2) Some of the scoffers said among themselves: “Where will this man go that we cannot find him? Will he go to live among the Greeks? Will he destroy himself? What can he mean when he declares that soon he will depart from us, and that we cannot go where he goes?”

162:2.9 (1792.3) Eber and his assistants refused to arrest Jesus; they returned to their meeting place without him. When, therefore,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upbraided Eber and his assistants because they had not brought Jesus with them, Eber only replied: “We feared to arrest him in the midst of the multitude because many believe in him. Besides, we never heard a man speak like this man. There is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about this teacher. You would all do well to go over to hear him.” And when the chief rulers heard these words, they were astonished and spoke tauntingly to Eber: “Are you also led astray? Are you about to believe in this deceiver? Have you heard that any of our learned men or any of the rulers have believed in him? Have any of the scribes or the Pharisees been deceived by his clever teachings? How does it come that you are influenced by the behavior of this ignorant multitude who know not the law or the prophets? Do you not know that such untaught people are accursed?” And then answered Eber: “Even so, my masters, but this man speaks to the multitude words of mercy and hope. He cheers the downhearted, and his words were comforting even to our souls. What can there be wrong in these teachings even though he may not be the Messiah of the Scriptures? And even then does not our law require fairness? Do we condemn a man before we hear him?” And the chief of the Sanhedrin was wroth with Eber and, turning upon him, said: “Have you gone mad? Are you by any chance also from Galilee? Search the Scriptures, and you will discover that out of Galilee arises no prophet, much less the Messiah.”

162:2.10 (1792.4) The Sanhedrin disbanded in confusion, and Jesus withdrew to Bethany for the night.

3. THE WOMAN TAKEN IN ADULTERY

162:3.1 (1792.5) It was during this visit to Jerusalem that Jesus dealt with a certain woman of evil repute who was brought into his presence by her accusers and his enemies. The distorted record you have of this episode would suggest that this woman had been brought before Jesus by the scribes and Pharisees, and that Jesus so dealt with them as to indicate that thes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might themselves have been

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혔지만, 그 시대와 세대에 가장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들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랬다: 축제에서 셋째 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까이 가자, 산헤드린에서 대리인으로 고용한 자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예수 앞으로 왔다. 가까이 온 그들 가운데 대변자가 말했다: “주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런 여자에게는 우리가 돌을 던져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어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꾸민 계획이었는데, 자백한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께서 채택하면, 로마 법정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이 사형 형벌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금지한 로마 통치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와 유대인의 율법보다 스스로 높아지려한다고 해서,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를 정죄하려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정죄하려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잘 처리해서, 모든 음모가 그 자체의 극심한 부도덕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한때 아름다웠던 이 여자는 나사렛의 한 하류 시민의 아내였는데, 그 남자는 어렸을 때 예수를 항상 괴롭히던 자였다. 이 여자와 결혼한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몸을 팔게 해서 돈을 벌며 생활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는 아내의 육체적 매력을 이용해서 매춘으로 돈을 벌려고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했다. 그는 유대인 관리의 돈을 받고 일하기 위해 흥정하게 됐으며, 아내를 상업적 악행에 팔아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체포됐을 때 씹먹을, 어떤 진술을 만들어 낼 목적으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범법행위 상대역을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둘러보다가 다른 사람들 뒤에 서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을 발견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미 알았고, 그 비열한 거래에 관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예수께서는, 먼저 이 타락한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그로 하여금 서둘러 떠나게 하는 몇 마디 말을 모래 위에 썼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다시 돌아와, 그 여자의 자칭 고소인들을 위해 다시 땅에 썼으며; 그들 역시 이것을 읽고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고 주님이 모래 위에 세 번째 썼을 때, 그 여자의 악역(惡役) 상대편도 떠나갔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 쓰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그 여자만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 여자가 눈을 들면서,

guilty of immorality. Jesus well knew that, while these scribes and Pharisees were spiritually blind and intellectually prejudiced by their loyalty to tradition, they were to be numbered among the most thoroughly moral men of that day and generation.

162:3.2 (1793.1) What really happened was this: Early the third morning of the feast, as Jesus approached the temple, he was met by a group of the hired agents of the Sanhedrin who were dragging a woman along with them. As they came near, the spokesman said: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 in the very act. Now, the law of Moses commands that we should stone such a woman. What do you say should be done with her?”

162:3.3 (1793.2) It was the plan of Jesus' enemies, if he upheld the law of Moses requiring that the self-confessed transgressor be stoned, to involve him in difficulty with the Roman rulers, who had denied the Jews the right to inflict the death penalty without the approval of a Roman tribunal. If he forbade stoning the woman, they would accuse him before the Sanhedrin of setting himself up above Moses and the Jewish law. If he remained silent, they would accuse him of cowardice. But the Master so managed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plot fell to pieces of its own sordid weight.

162:3.4 (1793.3) This woman, once comely, was the wife of an inferior citizen of Nazareth, a man who had been a troublemaker for Jesus throughout his youthful days. The man, having married this woman, did most shamefully force her to earn their living by making commerce of her body. He had come up to the feast at Jerusalem that his wife might thus prostitute her physical charms for financial gain. He had entered into a bargain with the hirelings of the Jewish rulers thus to betray his own wife in her commercialized vice. And so they came with the woman and her companion in transgression for the purpose of ensnaring Jesus into making some statement which could be used against him in case of his arrest.

162:3.5 (1793.4) Jesus, looking over the crowd, saw her husband standing behind the others. He knew what sort of man he was and perceived that he was a party to the despicable transaction. Jesus first walked around to near where this degenerate husband stood and wrote upon the sand a few words which caused him to depart in haste. Then he came back before the woman and wrote again upon the ground for the benefit of her would-be accusers; and when they read his words, they, too, went away, one by one. And when the Master had written in the sand the third time, the woman's companion in evil took his departure, so that, when the Master raised himself up from this writing, he beheld the woman standing alone before him. Jesus said: “Woman, where are your accusers?”

“주여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나는 너에 관해 아는데;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히다나라**는 이 여자는, 사악한 남편을 버리고 천국의 제자들과 합류했다.

did no man remain to stone you?” And the woman, lifting up her eyes, answered, “No man, Lord.” And then said Jesus: “I know about you;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in peace.” And this woman, Hildana, forsook her wicked husband and joined herself to the disciples of the kingdom.

4. 초막절 축제

스페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참여했으므로, **예수**께서 공개적인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기에는, 이 초막절 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회였다. 이 축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밖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오두막에 기거했다. 이것은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축제였고, 곧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는 시기였으므로, 겨울이 끝나는 때의 **유월절**이나, 여름이 시작되는 때의 **오순절**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명에 대해 온 세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됐다.

다른 축제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제물을 이때에만 바쳤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제였다. 이때에는 성전 헌금을 받았으며;종교적 경배의 장엄한 제례도 있었지만,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함께 이뤄졌다. 이때에는, 민족적 기쁨, 희생 제물, **레위인**의 영광, 그리고 제사장들의 은백색 트럼펫에서 나오는 장엄한 경적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밤에는, 여자들의 뜰에서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촛대들과 성전 뜰 근처에서 있는 많은 횃불의 현란한 빛이, 성전의 인상적인 모습과 순례자 군중을 밝게 비쳤다. 이런 즐겁고 거룩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내려다보는 **안토니아**의 **로마** 성곽을 제외한 전체 도시가 화려하게 장식됐다. 그리고 **로마**의 속박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이 성곽을 **유대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축제 기간에 이방의 70개 국가를 상징하는 70마리 황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물이 흐르게 하는 예식은, 신성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했다. 물로 하는 이 예식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해돋이 행진에 이어서 행해졌다. 경배 드리는 자들은 은백색 트럼펫이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자의 뜰 쪽으로 이어진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을 향해 열린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 신자들이 행진했다. 그들은 여기서 서쪽으로 향하고, 영광을 반복했으며, 상징적인 그 물을 향해 계속 행진했다.

축제에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45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같은 숫자의 **레위인**과 함께 집례했다. 날이 밝으면, 순례자들이 그 도성 각처에서 각

4. THE FEAST OF TABERNACLES

162:4.1 (1793.5) The presence of people from all of the known world, from Spain to India, made the feast of tabernacles an ideal occasion for Jesus for the first time publicly to proclaim his full gospel in Jerusalem. At this feast the people lived much in the open air, in leafy booths. It was the feast of the harvest ingathering, and coming, as it did, in the cool of the autumn months, it was more generally attended by the Jews of the world than was the Passover at the end of the winter or Pentecost at the beginning of summer. The apostles at last beheld their Master making the bold announcement of his mission on earth before all the world, as it were.

162:4.2 (1794.1) This was the feast of feasts, since any sacrifice not made at the other festivals could be made at this time. This was the occasion of the reception of the temple offerings; it was a combination of vacation pleasures with the solemn rites of religious worship. Here was a time of racial rejoicing, mingled with sacrifices, Levitical chants, and the solemn blasts of the silvery trumpets of the priests. At night the impressive spectacle of the temple and its pilgrim throngs was brilliantly illuminated by the great candelabras which burned brightly in the court of the women as well as by the glare of scores of torches standing about the temple courts. The entire city was gaily decorated except the Roman castle of Antonia, which looked down in grim contrast upon this festive and worshipful scene. And how the Jews did hate this ever-present reminder of the Roman yoke!

162:4.3 (1794.2) Seventy bullocks were sacrificed during the feast, the symbol of the seventy nations of heathendom. The ceremony of the outpouring of the water symbolized the outpouring of the divine spirit. This ceremony of the water followed the sunrise procession of the priests and Levites. The worshipers passed down the steps leading from the court of Israel to the court of the women while successive blasts were blown upon the silvery trumpets. And then the faithful marched on toward the beautiful gate, which opened upon the court of the gentiles. Here they turned about to face westward, to repeat their chants, and to continue their march for the symbolic water.

162:4.4 (1794.3) On the last day of the feast almost four hundred and fifty priests with a corresponding number of Levites officiated. At daybreak the pilgrims assembled from all parts of the city, each

자 오른 손에, 도금양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 손에는 각자 낙원 사과--곧 시트론 열매 또는 "금단의 열매"--가지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 예식을 위해 세 무리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아침 희생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 뜰에 남았으며; 다른 한 집단은 희생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려고,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마자** 가까이로 내려갔고, 그동안 셋째 집단은, 성전에서 대열을 지어 은백색 트럼펫 소리에 맞춰 행진했는데, 상징적 물이 들어 있는 금 주전자를 손에 든 물 담당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오펔**을 통과하여 **실로암** 근처로 나아갔고, 거기에는 수문{水門}이 있었다. 금 주전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워진 후에, 행렬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수문 길로 들어가서, 곧바로 제사장들의 뜰로 갔는데, 물 주전자를 든 제사장은 축배 봉헌을 위한 포도주를 들고 있는 제사장과 거기서 만났다. 이 두 제사장은, 제단 바닥으로 이어진 은으로 된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주전자에 들어 있는 것을 거기에 부었다. 포도주와 물을 붓는 이 제례가 이행되는 것이 모인 순례자들에게 신호가 되어, **레위족**과 번갈아가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전부 영창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반복할 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제단 주변에서 물결치듯 했다. 그다음에는 그날의 **시편**을 반복하는 것과 함께, 그날의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축제 가운데 마지막 날의 **시편**은 82편이었고, 5절부터 시작됐다.

carrying in the right hand a sheaf of myrtle, willow, and palm branches, while in the left hand each one carried a branch of the paradise apple — the citron, or the "forbidden fruit." These pilgrims divided into three groups for this early morning ceremony. One band remained at the temple to attend the morning sacrifices; another group marched down below Jerusalem to near Maza to cut the willow branches for the adornment of the sacrificial altar, while the third group formed a procession to march from the temple behind the water priest, who, to the sound of the silvery trumpets, bore the golden pitcher which was to contain the symbolic water, out through Ophel to near Siloam, where was located the fountain gate. After the golden pitcher had been filled at the pool of Siloam, the procession marched back to the temple, entering by way of the water gate and going directly to the court of the priests, where the priest bearing the water pitcher was joined by the priest bearing the wine for the drink offering. These two priests then repaired to the silver funnels leading to the base of the altar and poured the contents of the pitchers therein. The execution of this rite of pouring the wine and the water was the signal for the assembled pilgrims to begin the chanting of the Psalms from 113 to 118 inclusive, in alternation with the Levites. And as they repeated these lines, they would wave their sheaves at the altar. Then followed the sacrifices for the day, associated with the repeating of the Psalm for the day, the Psalm for the last day of the feast being the eighty-second, beginning with the fifth verse.

5. 세상의 빛에 관한 설교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무대의 배경을 큰 촛대와 횃불들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모인 군중 한가운데 일어나서 말씀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흑암 속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께님께 나를 재판에 회부하고, 마치 나를 재판이라도 하듯이 앉아서 선언하기를,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증거 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증거 하더라도, 내 증거는 영원히 참되며,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만 육체의 외모로 판단하며; 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내 대적일지라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해야 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고 의로울 것인데, 내가 홀로 판단하지 않고, 나들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참된 심판의 근원되시는

5. SERMON ON THE LIGHT OF THE WORLD

162:5.1 (1794.4) On the evening of the next to the last day of the feast, when the scene was brilliantly illuminated by the lights of the candelabras and the torches, Jesus stood up in the midst of the assembled throng and said:

162:5.2 (1795.1)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Presuming to place me on trial and assuming to sit as my judges, you declare that, if I bear witness of myself, my witness cannot be true. But never can the creature sit in judgment on the Creator. Even if I do bear witness about myself, my witness is everlastingly true, for I know whence I came, who I am, and whither I go. You who would kill the Son of Man know not whence I came, who I am, or whither I go. You only judge by the appearances of the flesh; you do not perceive the realities of the spirit. I judge no man, not even my archenemy. But if I should choose to judge, my judgment would be true and righteous, for I would judge not alone but in association with my Father, who sent me into the world, and who is the source of all true judgment. You even allow that the

내 **아버지**와 연합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두 사람의 믿을만한 증인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좋다, 그러면 내가 이 진리의 증인이 되겠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러하시다. 내가 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는 무지한 상태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내게 물었으며, 진실로,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리라는 것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이 빛을 거부하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며; 나는 위에서 왔다. 어둠 속에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의 영원한 빛 속에 산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여전히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며, 이 구원하는 빛을 고의로, 즉 알면서 거부하는 모든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 수 없다. 아무튼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며; 내 **아버지**는 죄 범하는 자녀도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해 왔다.

"**사람의 아들**이 들림 받으면, 그때에서야 너희는 내가 그인 것과, 나 스스로 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들려준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데, 내가 항상 그의 앞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 뜰에서 순례자들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를 잡으려 하지 못했다.

6.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마지막 날, 그 축제에서 가장 큰 날에, 행렬이 **실로암** 연못에서 출발하여 성전 뜰을 지나고, 제사장들이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은 직후에, **예수**께서 순례자 가운데 서서 말씀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 내가 생명의 물을 가져온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이 뜻하는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성서**도, '그로부터 생수(生水)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생명을 주는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이 영(靈)을 받는 자는 영적 목마름을 결코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단 앞에서 나뭇가지들을 물

witness of two reliable persons may be accepted — well, then, I bear witness of these truths; so also does my Father in heaven. And when I told you this yesterday, in your darkness you asked me, 'Where is your Father?' Truly, you know neither me nor my Father, for if you had known me, you would also have known the Father.

162:5.3 (1795.2) "I have already told you that I am going away, and that you will seek me and not find me, for where I am going you cannot come. You who would reject this light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 You who prefer to sit in darkness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and I live in the eternal light of the Father of lights. You all have had abundant opportunity to learn who I am, but you shall have still other evidence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I am the light of life, and every one who deliberately and with understanding rejects this saving light shall die in his sins. Much I have to tell you, but you are unable to receive my words. However, he who sent me is true and faithful; my Father loves even his erring children. And all that my Father has spoken I also proclaim to the world.

162:5.4 (1795.3) "When the Son of Man is lifted up, then shall you all know that I am he, and that I have done nothing of myself but only as the Father has taught me. I speak these word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he who sent me is even now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at which is pleasing in his sight."

162:5.5 (1795.4) As Jesus thus taught the pilgrims in the temple courts, many believed. And no man dared to lay hands upon him.

6. DISCOURSE ON THE WATER OF LIFE

162:6.1 (1795.5)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ast, as the procession from the pool of Siloam passed through the temple courts, and just after the water and the wine had been poured down upon the altar by the priests, Jesus, standing among the pilgrims, sai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From the Father above I bring to this world the water of life. He who believes me shall be filled with the spirit which this water represents, for even the Scriptures have said, 'Out of him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s.' When the Son of Man has finished his work on earth, there shall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the living Spirit of Truth. Those who receive this spirit shall never know spiritual thirst."

162:6.2 (1795.6) Jesus did not interrupt the service to speak these words. He addressed the worshipers

결치듯 움직임과 동시에 **시편**을 교독하는 **할렐** 영창 직후에 경배자들에게 강연했다. 바로 여기서 희생 제물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멈추게 됐으며, 영에_목마른 모든 혼에게 생명의 물을 수여하는 자임을 선언하는, **주님**의 황홀한 목소리를 순례자들이 들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른 아침의 이 예배가 마칠 무렵에, **예수**께서는 대중을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성서**에서: ‘보라, 마른땅에 물이 쏟아지고 말라버린 흙 위에 퍼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영을 너희 자녀 위에 부어서 복을 받게 하고, 너희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리하리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깨진 주전자 같은 형식에 치우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물로 너희 혼을 적시도록 추구하면서, 너희는 왜 영의 돌보심에 목말라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뤄지려 하는 그것은, 신성한 영이 신앙 자녀에게 증여됨을 너희 조상이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방법이며, 너희는 이 상징들을 오늘날까지도 잘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증여를 통해서, 영들의 **아버지**의 계시가 이 세대에 임했고, 이 모든 것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사람의 자녀에게 확실히 증여될 것이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증여된 영이 참된 선생이 되는데, 영생{永生}에 이르게 하는, 즉 땅 위의 하늘 나라와 저 세상의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참된 생명의 물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중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계속 대답했다. 더러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며; 더러는 **메시아**라고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에서 왔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권좌{權座}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감히 체포하지 못했다.

7. 영적 자유에 관한 강론

축제의 마지막 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라고 **예수**를 설득하기에 사도들이 실패한 후에,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갔다.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 있는 신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무에게도 노예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immediately after the chanting of the Hallel, the responsive reading of the Psalms accompanied by waving of the branches before the altar. Just here was a pause while the sacrifices were being prepared, and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pilgrims heard the fascinating voice of the Master declare that he was the giver of living water to every spirit-thirsting soul.

162:6.3 (1796.1) At the conclusion of this early morning service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multitude, saying: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Behold, as the waters are poured out upon the dry ground and spread over the parched soil, so will I give the spirit of holiness to be poured out upon your children for a blessing even to your children’s children’? Why will you thirst for the ministry of the spirit while you seek to water your souls with the traditions of men, poured from the broken pitchers of ceremonial service? That which you see going on about this temple is the way in which your fathers sought to symbolize the bestowal of the divine spirit upon the children of faith, and you have done well to perpetuate these symbols, even down to this day. But now has come to this generation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of spirits through the bestowal of his Son, and all of this will certainly be followed by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he Father and the Son upon the children of men. To every one who has faith shall this bestowal of the spirit become the true teacher of the way which leads to life everlasting, to the true waters of life in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in the Father’s Paradise over there.”

162:6.4 (1796.2) And Jesus continued to answer the questions of both the multitude and the Pharisees. Some thought he was a prophet; some believed him to be the Messiah; others said he could not be the Christ, seeing that he came from Galilee, and that the Messiah must restore David’s throne. Still they dared not arrest him.

7. THE DISCOURSE ON SPIRITUAL FREEDOM

162:7.1 (1796.3) On the afternoon of the last day of the feast and after the apostles had failed in their efforts to persuade him to flee from Jerusalem, Jesus again went into the temple to teach. Finding a large company of believers assembled in Solomon’s Porch, he spoke to them, saying:

162:7.2 (1796.4) “If my words abide in you and you are minde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then are you truly my disciples.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I know how you will answer me: W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and we are in bondage to none; how then shall we be made free? Even so, I do not speak of outward

다른 사람에게 외적(外的)으로 복종함이 아니라; 혼의 자유함을 뜻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 걸코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 또한 너희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아들이 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알지만,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말을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은 편견으로 봉해졌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존심으로 눈이 멀었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를 너희에게 전파했지만, 착각에 빠진 이 선생들은, 오직 이 세상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 행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고 말하겠다.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악한 자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타낸 진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의 자녀가 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어두움의 자녀라면, 내가 나타낸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지 못할 것이다. 악의 자녀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속이는 자인 자기 아비의 길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지만,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으로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대로 내가 살면서 선포한다면, 너희는 왜 믿지 않는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런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선생들은, 내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한다고 감히 말한다. 가까이 있던 사람은, 내가 마귀와 한편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정직하게 생각하는 자라면, 내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리라는 것은 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낙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또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데, 내 대신 심판하실 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서기관이 방금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

subjection to another's rule; I refer to the liberties of the soul. Verily, verily,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the bond servant of sin. And you know that the bond servant is not likely to abide forever in the master's house. You also know that the son does remain in his father's house. If, therefore, the Son shall make you free, shall make you sons, you shall be free indeed.

162:7.3 (1796.5)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seed, yet your leaders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s not been allowed to have its transforming influence in their hearts. Their souls are sealed by prejudice and blinded by the pride of revenge. I declare to you the truth which the eternal Father shows me, while these deluded teachers seek to do the things which they have learned only from their temporal fathers. And when you reply that Abraham is your father, then do I tell you that, if you were the children of Abraham, you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 Some of you believe my teaching, but others seek to destroy me because I have told you the truth which I received from God. But Abraham did not so treat the truth of God. I perceive that some among you are determined to do the works of the evil one.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know me and love the truth which I reveal. Will you not see that I come forth from the Father, that I am sent by God, that I am not doing this work of myself? Why do you not understand my words? Is it because you have chosen to become the children of evil? If you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you will hardly walk in the light of the truth which I reveal. The children of evil follow only in the ways of their father, who was a deceiver and stood not for the truth because there came to be no truth in him. But now comes the Son of Man speaking and living the truth, and many of you refuse to believe.

162:7.4 (1797.1) “Which of you convicts me of sin? If I, then, proclaim and live the truth shown me by the Father, why do you not believe? He who is of God hears gladly the words of God; for this cause many of you hear not my words, because you are not of God. Your teachers have even presumed to say that I do my works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One near by has just said that I have a devil, that I am a child of the devil. But all of you who deal honestly with your own souls know full well that I am not a devil. You know that I honor the Father even while you would dishonor me. I seek not my own glory, only the glory of my Paradise Father. And I do not judge you, for there is one who judges for me.

162:7.5 (1797.2)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o believe the gospel that, if a man will keep this word of truth alive in his heart, he shall never taste death. And now just at my side a scribe says this statement proves that I have a devil, seeing that Abraham is dead, also the prophets. And he asks: ‘Are you so

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감히 여기 서서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큰 자인가? 당신이 감히 그런 신성 모독 발언을 해도 된다고 한 자가 누구라고 당신은 주장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내 영광을 위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즉 내 **아버지**를 아는 것에 실패했으며, 너희를 함께 데려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분을 안다.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기를 즐거워했고, 신앙으로 이를 보고 기뻐했다.”

믿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이 무렵에 모여 있던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며 외쳤다: “네 나이가 오십도 못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니; 너는 마귀의 자식임에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강론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으며,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즉시 성전 복도를 통해 나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 근처의 비밀 모임 장소로 피했다.

8.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함

예수께서는 **나사로** 및 그 자매들과 함께 친구 집에 유숙하고, 사도들은 여기저기 몇 명씩 흩어지도록 했는데, **유대** 권세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다시 실행키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 세 명은, **예수**께서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지난 수 년 동안 관례였다. 그들은 부모를 잃었으므로, **마르다**가 가사를 책임지다시피 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기운을 북돋우는 가르침을 받는 동안,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마르다**가 쓸데없는 여러 과제로 괜히 산란했고, 하찮은 많은 걱정으로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설명돼야만 할 것이며; 그것이 **마르다**의 성향이었다.

마르다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바쁘게 처리하면서, **마리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께 가서 말했다: “**주님**,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모른 채하는 내

much greater than Abraham and the prophets that you dare to stand here and say that whoso keeps your word shall not taste death? Who do you claim to be that you dare to utter such blasphemies? And I say to all such that, if I glorify myself, my glory is as nothing. But it is the Father who shall glorify me, even the same Father whom you call God. But you have failed to know this your God and my Father, and I have come to bring you together; to show you how to become truly the sons of God. Though you know not the Father, I truly know him. Even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by faith he saw it and was glad.”

162:7.6 (1797.3) When the unbelieving Jews and the agents of the Sanhedrin who had gathered about by this time heard these words, they raised a tumult, shouting: “You are not fifty years of age, and yet you talk about seeing Abraham;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Jesus was unable to continue the discourse. He only said as he departed, “Verily, veri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Many of the unbelievers rushed forth for stones to cast at him, and the agents of the Sanhedrin sought to place him under arrest, but the Master quickly made his way through the temple corridors and escaped to a secret meeting place near Bethany where Martha, Mary, and Lazarus awaited him.

8. THE VISIT WITH MARTHA AND MARY

162:8.1 (1797.4) It had been arranged that Jesus should lodge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a friend's house, while the apostles we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small groups, these precautions being taken because the Jewish authorities were again becoming bold with their plans to arrest him.

162:8.2 (1797.5) For years it had been the custom for these three to drop everything and listen to Jesus' teaching whenever he chanced to visit them. With the loss of their parents, Martha had assum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ome life, and so on this occasion, while Lazarus and Mary sat at Jesus' feet drinking in his refreshing teaching, Martha made ready to serve the evening meal. It should be explained that Martha was unnecessarily distracted by numerous needless tasks, and that she was cumbered by many trivial cares; that was her disposition.

162:8.3 (1798.1) As Martha busied herself with all these supposed duties, she was perturbed because Mary did nothing to help. Therefore she went to Jesus and said: “Master,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alone to do all of the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항상 그토록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그토록 많은 하찮은 일을 걱정하느냐?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오직 한 가지라도 족하며, **마리아**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쪽을 선택했으니,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돼야, 너희 둘이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대로 살게 되어; 음식 만드는 일도 같이하고, 너희 둘의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협동하게 되겠느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곧 하늘 나라의 더 중대한 일 앞에, 인생의 덜 중요한 일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겠느냐?

9. 베들레헴에서 아브넬과 함께

초막절 바로 다음 한 주간 내내, 상당히 많은 신자가 **베다니**에 모여서 열두 사도로부터 교훈을 받아들였다. **산헤드린**은 **예수**께서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모임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아브넬** 및 그 동역자들과 **베들레헴**에서 활동했다. **예수**께서는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베다니**로 갔으며, 이 **예루살렘** 방문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이때, **아브넬**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차리고 있었고, 그 중심지에서 **유대지방**의 도시들과 남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까지 많은 일꾼을 보낸 후였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 안 되어, **예수**와 **아브넬**은 두 집단 사도의 일이 통합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 축제에 방문하는 동안 내내, **베다니**와 **베들레헴**에서 거의 똑같이 시간을 보냈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을 보냈으며; **베들레헴**에서는, **아브넬**을 비롯해서 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였던 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였다. 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히 가르친 그 용기에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사사롭게 가르칠 때 체험한, 호의적인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영향은, **아브넬**의 동역자들 각자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천국을, 그리고 그런 발걸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생애를 끝내기 전까지 있게 될 단합된 수고에 자기와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 모두를 준비시켰다.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가단 공원**에서 **예수** 및 열두 사도와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이 약속에 따라서, 11월 초에 **아브넬**과 열한 명의 동료는, **예수** 및 열두 사도와 운명을 같이하

serving? Will you not bid her to come and help me?” Jesus answered: “Martha, Martha, why are you always anxious about so many things and troubled by so many trifles? Only one thing is really worth while, and since Mary has chosen this good and needful part, I shall not take it away from her. But when will both of you learn to live as I have taught you: both serving in co-operation and both refreshing your souls in unison? Can you not learn that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 that the lesser matters of life should give way before the greater things of the heavenly kingdom?”

9. AT BETHLEHEM WITH ABNER

162:9.1 (1798.2) Throughout the week that followed the feast of tabernacles, scores of believers forgathered at Bethany and received instruction from the twelve apostles. The Sanhedrin made no effort to molest these gatherings since Jesus was not present; he was throughout this time working with Abner and his associates in Bethlehem. The day following the close of the feast, Jesus had departed for Bethany, and he did not again teach in the temple during this visit to Jerusalem.

162:9.2 (1798.3) At this time, Abner was making his headquarters at Bethlehem, and from that center many workers had been sent to the cities of Judea and southern Samaria and even to Alexandria. Within a few days of his arrival, Jesus and Abner completed the arrangements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work of the two groups of apostles.

162:9.3 (1798.4) Throughout his visit to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had divided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Bethany and Bethlehem. At Bethany he spent considerable time with his apostles; at Bethlehem he gave much instruction to Abner and the other former apostles of John. And it was this intimate contact that finally led them to believe in him. These former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were influenced by the courage he displayed in his public teaching in Jerusalem as well as by the sympathetic understanding they experienced in his private teaching at Bethlehem. These influences finally and fully won over each of Abner's associates to a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kingdom and all that such a step implied.

162:9.4 (1798.5) Before leaving Bethlehem for the last time, the Master made arrangements for them all to join him in the united effort which was to precede the ending of his earth career in the flesh. It was agreed that Abner and his associates were to join Jesus and the twelve in the near future at Magadan Park.

162:9.5 (1798.6) In accordance with this understanding, early in November Abner and his

기로 결심했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10월 후반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 않았다. **예수**와 동역자들은, 10월 30일 일요일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예수**께서 홀로 며칠 쉬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요단강** 서쪽 큰 길을 지나 곧바로 **마가단 공원**으로 갔으며, 11월 2일 수요일 오후 늦게 도착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주님**이 돌아온 것에 대해 크게 안심했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더 이상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다.

eleven fellows cast their lot with Jesus and the twelve and labored with them as one organization right on down to the crucifixion.

^{162:9.6 (1798.7)} In the latter part of October Jesus and the twelve withdrew from the immediate vicinity of Jerusalem. On Sunday, October 30, Jesus and his associates left the city of Ephraim, where he had been resting in seclusion for a few days, and, going by the west Jordan highway directly to Magadan Park, arrived late on the afternoon of Wednesday, November 2.

^{162:9.7 (1799.1)} The apostles were greatly relieved to have the Master back on friendly soil; no more did they urge him to go up to Jerusalem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제163편. 마가단에서 70인 임직식

⇨ 162

유랜시아 책

16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63편
마가단에서 70인 임직식

섹션

소개

1. 70인 임직식
2. 부자 청년 및 다른 사람들
3. 재산에 대한 토론
4. 70인을 파송함
5.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6. 70인이 돌아옴
7. 마지막 전도를 위한 준비

소개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마가단**으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에, **아브넬**과 약 50명의 제자 무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도착했다. 이때 **마가단** 야영지에는, 전도자 단체, 여자 단체, 그리고 **팔레스틴** 각 지역에서 온, 약 150명의 진실하고 믿을만한 다른 제자가 모였다. 며칠 동안 야영지를 둘러보고 재정비하기에 몰두한 후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이 특별한 무리의 신자들에게 일련의 집중 훈련 과정을 시작했으며, **주님**은 그 후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제자 집단에서 70명의 선생을 선정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냈다. 이 정규(正規) 훈련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해서,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됐다.

아침마다 **예수**께서 이 대원들에게 말씀했다. **베드로**가 대중 전도 방법을 가르쳤으며; **나다니엘**은 가르치는 기술을 교육했으며; **도마**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마태**는 그들의 집단 재정을 조직화하도록 지도했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특별한 체험과 타고난 재주에 따라서 이 훈

PAPER 163

ORDINATION OF THE SEVENTY AT
MAGADAN

SECTIONS

Introduction

1. Ordination of the Seventy
2. The Rich Young Man and Others
3. The Discussion about Wealth
4. Farewell to the Seventy
5. Moving the Camp to Pella
6. The Return of the Seventy
7. Preparation for the Last Mission

INTRODUCTION

163:0.1 (1800.1) A FEW days after the return of Jesus and the twelve to Magadan from Jerusalem, Abner and a group of some fifty disciples arrived from Bethlehem. At this time there were also assembled at Magadan Camp the evangelistic corps, the women's corps, and about one hundred and fifty other true and tried disciples from all parts of Palestine. After devoting a few days to visiting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amp, Jesus and the twelve began a course of intensive training for this special group of believers, and from this well-trained and experienced aggregation of disciples the Master subsequently chose the seventy teachers and sent them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This regular instruction began on Friday, November 4, and continued until Sabbath, November 19.

163:0.2 (1800.2) Jesus gave a talk to this company each morning. Peter taught methods of public preaching; Nathaniel instructed them in the art of teaching; Thomas explained how to answer questions; while Matthew directed the organization of their group finances. The other apostles also

런에 동참했다.

participated in this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experience and natural talents.

1. 70인 임직식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마가단** 야영지에서 70인을 임명했으며, 복음 전파자이자 선생인 이들의 책임자로서 **아브넬**이 임명됐다. 70명의 이 단체는, **아브넬**, 그리고 **세레 요한**의 옛 사도 열 명, 초기의 전도자들 중에서 51명, 그리고 천국 봉사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다른 제자 여덟 명으로 구성됐다.

이 **안식일** 오후 두 시경, 소나기가 멈춘 사이에, **다윗**과 그의 심부름꾼 단체 대다수가 합세하여 수가 늘어났고, 400명 이상의 신자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70인 임직식을 지켜봤다.

복음 사자{使者}로서 따로 세우려고 70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 현장에 다른 일꾼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천국 사자로 보내려 하며; 이리 떼 속에 있는 양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둘씩 짝지어 출발하고, 이 첫 사명은 잠시 동안만 실행될 것이니, 지갑이나 여분의 옷을 지니고 가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업무에만 전념해라. 어느 집에 머물게 될 때마다, 반드시 먼저: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해라.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거기 살면, 거기에 머물도록 하며; 그렇지 않거든 떠나라. 이런 집을 선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물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놓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은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된다 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친선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사악하고 자기기만에 빠진 적들과 반드시 논쟁해야 됨을 기억하라; 그런즉 너희는, 비둘기 같이 무해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전파해 말하고, 정신 또는 육체가 병든 모든 자를 보살피라. 너희가 천국의 좋은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어느 성읍 사람이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니; 어느 성읍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무리를 떠날 때에도 여전히 너희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때까지도 너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

1. ORDINATION OF THE SEVENTY

163:1.1 (1800.3) The seventy were ordained by Jesus on Sabbath afternoon, November 19, at the Magadan Camp, and Abner was placed at the head of these gospel preachers and teachers. This corps of seventy consisted of Abner and ten of the former apostles of John, fifty-one of the earlier evangelists, and eight other disciple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 service of the kingdom.

163:1.2 (1800.4) About two o'clock on this Sabbath afternoon, between showers of rain, a company of believers, augmented by the arrival of David and the majority of his messenger corps and numbering over four hundred, assembled on the shore of the lake of Galilee to witness the ordination of the seventy.

163:1.3 (1800.5) Before Jesus laid his hands upon the heads of the seventy to set them apart as gospel messengers, addressing them, he said: “The harvest is indeed plenteous,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I exhort all of you to pray that the Lord of the harvest will send still other laborers into his harvest. I am about to set you apart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I am about to send you to Jew and gentile as lambs among wolves. As you go your ways, two and two, I instruct you to carry neither purse nor extra clothing, for you go forth on this first mission for only a short season. Salute no man by the way, attend only to your work. Whenever you go to stay at a home,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hold. If those who love peace live therein, you shall abide there; if not, then shall you depart. And having selected this home, remain there for your stay in that city,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is set before you. And you do this because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sustenance. Move not from house to house because a better lodging may be offered. Remember, as you go forth proclaiming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you must contend with bitter and self-deceived enemies; therefore be as wise as serpents while you are also as harmless as doves.

163:1.4 (1801.1) “And everywhere you go, preach,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minister to all who may be sick in either mind or body. Freely you have received of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freely give. If the people of any city receive you, they shall find an abundant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but if the people of any city refuse to receive this gospel, still shall you proclaim your message as you depart from that unbelieving community, saying, even as you leave, to those who reject your teaching:

결에 있다'고 말해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거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70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동글게 무릎 꿇은 그들에게,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넬**은 70인 사자를, **갈릴리**, **사마리아**, 및 **유대지방**의 모든 성읍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이 서른다섯 쌍의 사자는, 6주 동안 전도하고 가르쳤으며, 12월 30일 금요일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 근처의 새 야영지로 모두 돌아왔다.

2. 부자 청년 및 다른 사람들

70인 가운데 하나로 지명되고 임명받으려 했던 오십 명 이상의 제자가, 이 후보자들을 선정하도록 **예수**께서 임명한 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넬**, 그리고 전도자 단체의 임시 대표자로 구성됐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후보자를 **예수**께 데려갔고, **주님**께서는 복음 사자로서 임명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거부하지 않은 반면, **예수**와 대화를 마쳤을 때, 복음 사자가 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은 사람이 열두 명 이상 있었다.

진지한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나도 당신의 새로운 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내 아버지가 매우 늙어서서 거의 돌아가시게 됐으니, 집에 가서 장사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 “**애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신실한 제자이고, 집으로 돌아가 머물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지만, 내 복음 사자들과 함께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임명받은 선생이 되려거든, 죽은 자를 다른 사람들이 장사지내도록 하고, 너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다른 제자가 **주님**께 와서 말했다: “나는 임명받은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만, 집에 가서 잠시 동안만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네가 임명받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복음 사자는 오직 한 가지에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때 **안드레**가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 앞으로

‘Notwithstanding you reject the truth, it remain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you.’ He who hears you hears me. And he who hears me hears Him who sent me. He who rejects your gospel message rejects me. And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163:1.5 (1801.2)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seventy, he began with Abner and, as they knelt in a circle about him, laid his hands upon the head of every man.

163:1.6 (1801.3) Early the next morning Abner sent the seventy messengers into all the cities of Galilee, Samaria, and Judea. And these thirty-five couples went forth preaching and teaching for about six weeks, all of them returning to the new camp near Pella, in Perea, on Friday, December 30.

2. THE RICH YOUNG MAN AND OTHERS

163:2.1 (1801.4) Over fifty disciples who sought ordination and appointment to membership in the seventy were rejected by the committee appointed by Jesus to select these candidates. This committee consisted of Andrew, Abner, and the acting head of the evangelistic corps. In all cases where this committee of three were not unanimous in agreement, they brought the candidate to Jesus, and while the Master never rejected a single person who craved ordination as a gospel messenger, there were more than a dozen who, when they had talked with Jesus, no more desired to become gospel messengers.

163:2.2 (1801.5) One earnest disciple came to Jesus, saying: “Master, I would be one of your new apostles, but my father is very old and near death; could I be permitted to return home to bury him?” To this man Jesus said: “My son,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heaven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You are a faithful disciple, and you can remain such while you return home to minister to your loved ones, but not so with my gospel messengers. They have forsaken all to follow me and proclaim the kingdom. If you would be an ordained teacher, you must let others bury the dead while you go forth to publish the good news.” And this man went away in great disappointment.

163:2.3 (1801.6) Another disciple came to the Master and said: “I would become an ordained messenger, but I would like to go to my home for a short while to comfort my family.” And Jesus replied: “If you would be ordained, you must be willing to forsake all. The gospel messengers cannot have divided affections. No man, having put his hand to the plough, if he turns back, is worthy to become a messenger of the kingdom.”

163:2.4 (1801.7) Then Andrew brought to Jesus a

데려 왔는데, 그는 경건한 신자였고, 임명받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마타돌무스**라는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곧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에게서 천국 복음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임명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마타돌무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산보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확실히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너는 잘했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지, 단순히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천국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가 대답했다. “예, **주님**,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제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내 제자이며 천국의 자녀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당신의 새로 임명되는 사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씀했다: “네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른다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다면, 너를 사자들 중에 하나로 삼겠다.” **마타돌무스**가 대답했다. “**주님**,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릎 꿇고 있는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씀했다. “네가 내 사자가 되고 싶으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난한 자나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좇아라, 그러면 하늘 나라에서 보화를 소유할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산이 매우 많았으므로, 일어나서 슬퍼하며 가버렸다.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임을 믿도록 배워왔다. **예수**께서는, 청년이 자신과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그를 구해주고 싶었던 것이지, 반드시 모든 재물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세상 물질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했다. **마타돌무스**가 새로 임명된 70인 사자 가운데 하나가 되려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현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런 까닭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애완동물처럼 아끼면서 놓지 않으려 하는 악한 어떤 것, 그러나 하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값의 일부분으로 요구되는

certain rich young man who was a devout believer, and who desired to receive ordination. This young man, Matadormus, was a member of the Jerusalem Sanhedrin; he had heard Jesus teach and had been subsequently instruct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by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Jesus talked with Matadormu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ordination and requested that he defer decision until after he had thought more fully about the matter. Early the next morning, as Jesus was going for a walk, this young man accosted him and said: “Master, I would know from you the assurances of eternal life. Seeing that I have observed all the commandments from my youth, I would like to know what more I must do to gain eternal life?” In answer to this question Jesus said: “If you keep all the commandments —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parents — you do well, but salvation is the reward of faith, not merely of works. Do you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Matadormus answered: “Yes, Master, I do believe everything you and your apostles have taught me.” And Jesus said, “Then are you indeed my disciple and a child of the kingdom.”

163:2.5 (1802.1) Then said the young man: “But, Master, I am not content to be your disciple; I would be one of your new messengers.” When Jesus heard this, he looked down upon him with a great love and said: “I will have you to be one of my messengers if you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if you will supply the one thing which you lack.” Matadormus replied: “Master, I will do anything if I may be allowed to follow you.” Jesus, kissing the kneeling young man on the forehead, said: “If you would be my messenger, go and sell all that you have and, when you have bestowed the proceeds upon the poor or upon your brethren, come and follow me, and you shall have treasure in the kingdom of heaven.”

163:2.6 (1802.2) When Matadormus heard this, his countenance fell. He arose and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This wealthy young Pharisee had been raised to believe that wealth was the token of God's favor. Jesus knew that he was not free from the love of himself and his riches. The Master wanted to deliver him from the love of wealth, not necessarily from the wealth. While the disciples of Jesus did not part with all their worldly goods, the apostles and the seventy did. Matadormus desired to be one of the seventy new messengers, and that was the reason for Jesus' requiring him to part with all of his temporal possessions.

163:2.7 (1802.3) Almost every human being has some one thing which is held on to as a pet evil, and which the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것을 갖고 있다. **마타돌무스**가 자기 재물을 버렸다면, 아마 70인의 재물로 경영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그의 손에 맡겼을 것이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는데, 70인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늦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재무담당자가 됐으며,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항상 그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은: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영적인 세계의 세력들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으며;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

예수께서는, **마타돌무스**가 자기 재물을 소유 하고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함께 임명받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다봤으며;동시에, 재산을 버린다면 모든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바로 **예수**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은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요구했던,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일을, 그가 이때 했더라면 그의 체험이 됐을, **주님**과 나누는 긴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스스로 뺏겼기 때문이다.

부유함 자체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부(富)를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천국에 대한 영적 충성심과, 유물론적 물질숭배에 노예 된 상태는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은 최고의 충성심을 영적 이상(理想)과 물질적 애착심에 나눠 바쳐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께서는, 오직 열두 사도와 70인에게만, 공동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들의 모든 세상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그럴 때에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소유를 정리할 때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예수**께서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 번 충고했다. **예수**께서는, 초과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피할 수 없는 불운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합리적인 형태라고 봤다. 사도들의 기금이 넘칠 때에는, 후에 수입이 줄어서 크게 고통당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다**가 자금을 예치해 뒀다. **유다**는 **안드레**와 혐의한 후에 이렇게 했다. 구호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께서는 사도의 재정에 친히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여러 번 책망한 한 가지 경제적 폐단이 있었는데, 즉 약하고 배우지 못했고 행운이 덜 따랐던 사람을, 강하고 훌륭하며 지식적인 동료들이 불공평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른과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비인간적인 대접은, 하늘 나라 형제관계의 이상(理想)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requires as a part of the price of admission. If Matadormus had parted with his wealth, it probably would have been put right back into his hands for administration as treasurer of the seventy. For later 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at Jerusalem, he did obey the Master's injunction, although it was then too late to enjoy membership in the seventy, and he became the treasurer of the Jerusalem church, of which James the Lord's brother in the flesh was the head.

163:2.8 (1802.4) Thus always it was and forever will be: Men must arrive at their own decisions. There is a certain range of the freedom of choice which mortals may exercise. The forces of the spiritual world will not coerce man; they allow him to go the way of his own choosing.

163:2.9 (1802.5) Jesus foresaw that Matadormus, with his riches, could not possibly become an ordained associate of men who had forsaken all for the gospel; at the same time, he saw that, without his riches, he would become the ultimate leader of all of them. But, like Jesus' own brethren, he never became great in the kingdom because he deprived himself of that intimate and personal association with the Master which might have been his experience had he been willing to do at this time the very thing which Jesus asked, and which, several years subsequently, he actually did.

163:2.10 (1803.1) Riches have nothing directly to do with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love of wealth does. The spiritual loyalties of the kingdom are incompatible with servility to materialistic mammon. Man may not share his supreme loyalty to a spiritual ideal with a material devotion.

163:2.11 (1803.2) Jesus never taught that it was wrong to have wealth. He required only the twelve and the seventy to dedicate all of their worldly possessions to the common cause. Even then, he provided for the profitable liquidation of their property, as in the case of the Apostle Matthew. Jesus many times advised his well-to-do disciples as he taught the rich man of Rome. The Master regarded the wise investment of excess earnings as a legitimate form of insurance against future and unavoidable adversity. When the apostolic treasury was overflowing, Judas put funds on deposit to be used subsequently when they might suffer greatly from a diminution of income. This Judas did after consultation with Andrew. Jesus never personally had anything to do with the apostolic finances except in the disbursement of alms. But there was one economic abuse which he many times condemned, and that was the unfair exploitation of the weak, unlearned, and less fortunate of men by their strong, keen, and more intelligent fellows. Jesus declared that such inhuman treatment of men, women, and children was incompatible with the ideals of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3. 재산에 대한 토론

예수께서 **마타돌무스**와 대화를 끝낼 때까지, **베드로**와 여러 사도가 그의 옆에 모여 있었고, 부자(富者) 청년이 떠나자 예수께서 사도들을 돌아 보고 말씀했다: “부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봤느냐! 물질에 몰두하면서 영적 경배를 드릴 수는 없으며;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이방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흔히 말한다. 그리고 내가 선언하겠는데, 자기만족으로 가득한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으며, 특히 **베드로**가 놀라면서 말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되겠습니까? 부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진보하도록 인도하는 영적 삶에 동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불가능은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자, 예수께서는 **마타돌무스**가 그들과 함께 남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했는데, 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수 가까이 걸어 내려가서 물가에 앉았고, (이때 거기에 모두 모여 있던) 열두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 재물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했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오직 사도가 되려는 사람과, 너희처럼 한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사모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나뉘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천국의 진리에 대한 사랑과 너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포기해야 한다. 어떤 이의 재물이 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의 영적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열두 사도 모두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재산, 가정, 아내, 형제, 부모, 또는 자녀를 버려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 배를 받되 박해와 함께 받을 수도 있고,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여러 배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으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3. THE DISCUSSION ABOUT WEALTH

163:3.1 (1803.3) By the time Jesus had finished talking with Matadormus, Peter and a number of the apostles had gathered about him, and as the rich young man was departing, Jesus turned around to face the apostles and said: “You see how difficult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fully into the kingdom of God! Spiritual worship cannot be shared with material devotion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have a saying that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the heathen to inherit eternal life.’ And I declare that it is as easy for this camel to go through the needle’s eye as for these self-satisfied rich one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163:3.2 (1803.4) When Peter and the apostles heard these words, they were astonished exceedingly, so much so that Peter said: “Who then, Lord, can be saved? Shall all who have riches be kept out of the kingdom?” And Jesus replied: “No, Peter, but all who put their trust in riches shall hardly enter into the spiritual life that leads to eternal progress. But even then, much which is impossible to man is not beyond the reach of the Father in heaven; rather should we recognize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163:3.3 (1803.5) As they went off by themselves, Jesus was grieved that Matadormus did not remain with them, for he greatly loved him. And when they had walked down by the lake, they sat there beside the water, and Peter, speaking for the twelve (who were all present by this time), said: “We are troubled by your words to the rich young man. Shall we require those who would follow you to give up all their worldly goods?” And Jesus said: “No, Peter, only those who would become apostles, and who desire to live with me as you do and as one family. But the Father requires that the affections of his children be pure and undivided. Whatever thing or person comes between you and the love of the truths of the kingdom, must be surrendered. If one’s wealth does not invade the precincts of the soul, it is of no consequence in the spiritual life of thos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163:3.4 (1804.1) And then said Peter, “But, Master,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shall we have?” And Jesus spoke to all of the twelve: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ere is no man who has left wealth, home, wife, brethren, parents, or children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who shall not receive manifold more in this world, perhaps with some persecutions, and in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shall be last, while the last

종종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복지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동정심으로 이뤄진 공정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신다.

“하늘 나라는 마치, 많은 일꾼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어느 집주인과 같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가 아홉 시 무렵에 다시 나가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장터에서 보고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들도 즉시 일하러 갔다. 그는 열두 시와 세 시 무렵에 또 나가서 똑같이 했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 되어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여기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저녁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되,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하고, 처음 고용된 사람은 맨 나중에 지불하라.’ 다섯 시에 고용됐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다른 일꾼들도 각각 그렇게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고용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을 보고, 합의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했다. 임금을 다 받고 나자, 그들이 불평하면서 말했다: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다: ‘친구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 너희 각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시 네 것이나 갖고 가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를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선하기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관대함에 불평하느냐?’

4. 70인을 파송함

70인이 처음 전도 나가는 **마가단** 야영지에서 그날은 감동적이었다. 그날 이른 아침에, 70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1.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즉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선포돼야 한다.

shall often be first. The Father deals with his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and in obedience to his just laws of merciful and loving consideration for the welfare of a universe.

163:3.5 (1804.2)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householder who was a large employer of men, and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laborers to work in his vineyard. When he had agreed with the laborers to pay them a denarius a day, he sent them into the vineyard. Then he went out about nine o'clock, and seeing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 place idle, he said to them: ‘Go you also to work in my vineyard, and whatsoever is right I will pay you.’ And they went at once to work. Again he went out about twelve and about three and did likewise. And going to the market place about five in the afternoon, he found still others standing idle, and he inquired of them, ‘Why do you stand here idle all the day?’ And the men answered, ‘Because nobody has hired us.’ Then said the householder: ‘Go you also to work in my vineyard, and whatever is right I will pay you.’

163:3.6 (1804.3) “When evening came, this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steward: ‘Call the labor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hired and ending with the first.’ When those who were hired about five o'clock came, they received a denarius each, and so it was with each of the other laborers. When the men who were hired at the beginning of the day saw how the later comers were paid,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than the amount agreed upon. But like the others every man received only a denarius. And when each had received his pay, they complained to the householder, saying: ‘These men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et you have paid them the same as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in the scorching sun.’

163:3.7 (1804.4) “Then answered the householder: ‘My friends, I do you no wrong. Did not each of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a day? Take now that which is yours and go your way, for it is my desire to give to those who came last as much as I have given to you. Is it not lawful for me to do what I will with my own? or do you begrudge my generosity because I desire to be good and to show mercy?’”

4. FAREWELL TO THE SEVENTY

163:4.1 (1804.5) It was a stirring time about the Magadan Camp the day the seventy went forth on their first mission. Early that morning, in his last talk with the seventy, Jesus placed emphasis on the following:

163:4.2 (1804.6) 1. The gospel of the kingdom must be proclaimed to all the world, to gentile as well as to Jew.

2. 병자를 돌보되, 기적을 기대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3. 세상 권력과 물질적 영화라는 외적{外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관계를 전파하라.

4.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과도한 사교적 방문 또는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라.

5. 어떤 집이 먼저 본부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판명되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내내 거기서 지내라.

6.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드러내놓고 갈라설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모든 신실한 신자에게 명확하게 알라라.

7. 사람이 해야 할 전체 의무가, 이 한 계명에 함축돼 있음을 가르쳐라: 너희 **하나님**이신 **주**를 너희 모든 정신과 혼으로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리새인**이 설명하는 613가지 생활규정 대신에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의무라고, 그들이 가르쳐야 했다.)

모든 사도와 제자가 참석 한 가운데, **예수**께서 70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쳤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임직식 설교를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 설교는,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천국 사자들로서 떠나도록 할 때 줬던 지침을 공들여 다듬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70인에게 그들이 체험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덕목을 깊이 간직하라고 훈계했다:

1. **성별{聖別}된 헌신**. 복음의 추수 현장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항상 기도할 것. 그런 기도를 할 때, 차라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매일 드리는 경배를 경시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2. **진정한 용기**. 그들이 적개심에 마주칠 것이며 박해를 당하게 돼있다고 경고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사명이 소심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두려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물러서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3. **신앙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에 아무 도움 없이 임해야 하며; 음식, 잠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의존해야 한다.

4. **열의와 솔선**. 그들은 열의와 지성적 의욕을 지녀야 하며; **주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동양식** 인사치레는 너무 길었고, 복잡하게 격식을 차렸으므로;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 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163:4.3 (1804.7) 2. While ministering to the sick, refrain from teaching the expectation of miracles.

163:4.4 (1805.1) 3. Proclaim a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not an outward kingdom of worldly power and material glory.

163:4.5 (1805.2) 4. Avoid loss of time through overmuch social visiting and other trivialities which might detract from wholehearted devotion to preaching the gospel.

163:4.6 (1805.3) 5. If the first house to be selected for a headquarters proves to be a worthy home, abide there throughout the sojourn in that city.

163:4.7 (1805.4) 6. Make clear to all faithful believers that the time for an open break with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at Jerusalem has now come.

163:4.8 (1805.5) 7. Teach that man's whole duty is summed up in this one commandmen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mind and soul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they were to teach as man's whole duty in place of the 613 rules of living expounded by the Pharisees.)

163:4.9 (1805.6) When Jesus had talked thus to the seventy in the presence of all the apostles and disciples, Simon Peter took them off by themselves and preached to them their ordination sermon, which was an elaboration of the Master's charge given at the time he laid his hands upon them and set them apart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Peter exhorted the seventy to cherish in their experience the following virtues:

163:4.10 (1805.7) 1. *Consecrated devotion*. To pray always for more laborers to be sent forth into the gospel harvest. He explained that, when one so prays, he will the more likely say, “Here am I; send me.” He admonished them to neglect not their daily worship.

163:4.11 (1805.8) 2. *True courage*. He warned them that they would encounter hostility and be certain to meet with persecution. Peter told them their mission was no undertaking for cowards and advised those who were afraid to step out before they started. But none withdrew.

163:4.12 (1805.9) 3. *Faith and trust*. They must go forth on this short mission wholly unprovided for; they must trust the Father for food and shelter and all other things needful.

163:4.13 (1805.10) 4. *Zeal and initiative*. They must be possessed with zeal and intelligent enthusiasm; they must attend strictly to their Master's business. Oriental salutation was a lengthy and elaborate ceremony; therefore had they been instructed to “salute no man by the way,” which was a common method of exhorting one to go about his business without the waste of tim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of friendly

5. 친절함과 공손함. **주님**은 그들에게 사교적 예법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라고 명했다.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매우 친절히 대해야 했다. 더 편하거나 유력한 자에게 대접받기 위해, 겸손히 대하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엄중히 경고 받았다.

6. 병자를 돌볼 것. 육신과 정신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차도가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라고, **베드로**가 70인에게 명했다.

그리고 모든 설명과 지시가 끝난 후에, 그들은 돌씩 짚지어,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지방**에서 전도하기 위해 출발했다.

유대인이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異教徒)의 나라를 7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더라도, 그리고 이 70인의 사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는 했더라도, 우리가 아는 한, 이 무리의 숫자가 정확하게 70이 된 것은 우연이었을 뿐이다. **예수**께서는 6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더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대가(代價)로 재산과 가족을 떠나기를 그들이 싫어했다.

5.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이때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본부를 설치할 준비를 했으며, 그곳은 **펠라**에서 가까웠는데, 전에 **주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10일 동안 **마가단**에서 여러 가지로 회의하며 시간을 보냈고, 12월 6일 화요일에, 300명 정도 되는 전체 일행은, 그날 밤에 **펠라** 가까이 강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새벽에 출발했다. 우물 옆에 있는 이 장소는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야영지를 설치했던 곳이었다.

다윗 세베대는, **마가단**의 야영지를 철거한 후 **벳새다**로 돌아갔고, 즉시 연락 업무를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천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은 물론, 심지어 **로마 제국**의 먼 지방에서도 순례자들이 매일 도착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며, **티그리스** 동쪽 땅에서도 왔다.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자신의 심부름꾼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야영지 도구를 운반용 짐승에 실려 아버지 집으로 가져갔고, 전에 호숫가의 **벳새다**에서 야영지를 설치했던 것들과 함께 보관했다. 당분간 **벳새다**를 떠나면서, 그는 호숫가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갔고, 사도들의 야영지가 있는 곳에서 약

greeting.

163:4.14 (1805.11) 5. Kindness and courtesy. The Master had instructed them to avoid unnecessary waste of time in social ceremonies, but he enjoined courtesy toward all with whom they should come in contact. They were to show every kindness to those who might entertain them in their homes. They were strictly warned against leaving a modest home to be entertained in a more comfortable or influential one.

163:4.15 (1805.12) 6. Ministry to the sick. The seventy were charged by Peter to search out the sick in mind and body and to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bring about the alleviation or cure of their maladies.

163:4.16 (1805.13) And when they had been thus charged and instructed, they started out, two and two, on their mission in Galilee, Samaria, and Judea.

163:4.17 (1806.1) Although the Jews had a peculiar regard for the number seventy, sometimes considering the nations of heathendom as being seventy in number, and although these seventy messengers were to go with the gospel to all peoples, still as far as we can discern, it was only coincidental that this group happened to number just seventy. Certain it was that Jesus would have accepted no less than half a dozen others, but they were unwilling to pay the price of forsaking wealth and families.

5. MOVING THE CAMP TO PELLA

163:5.1 (1806.2) Jesus and the twelve now prepared to establish their last headquarters in Perea, near Pella, where the Master was baptized in the Jordan. The last ten days of November were spent in council at Magadan, and on Tuesday, December 6, the entire company of almost three hundred started out at daybreak with all their effects to lodge that night near Pella by the river. This was the same site, by the spring, that John the Baptist had occupied with his camp several years before.

163:5.2 (1806.3) After the breaking up of the Magadan Camp, David Zebedee returned to Bethsaida and began immediately to curtail the messenger service. The kingdom was taking on a new phase. Daily, pilgrims arrived from all parts of Palestine and even from remote regions of the Roman Empire. Believers occasionally came from Mesopotamia and from the lands east of the Tigris. Accordingly, on Sunday, December 18, David, with the help of his messenger corps, loaded on to the pack animals the camp equipage, then stored in his father's house, with which he had formerly conducted the camp of Bethsaida by the lake. Bidding farewell to Bethsaida for the time

반 마일 북쪽 지점에 도착했으며;한 주일이 못되는 기간 내에, 거의 1,500명의 순례자를 환대할 준비를 갖췄다. 사도들의 야영지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때 **팔레스틴**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고, 계속 증가하는 탐구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이런 숙박 설비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들으려고 **베레아**에 온,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태**에게 의논한 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은 자진해서 처리했다. 그는 전에 심부름꾼 단체였던 사람 대부분을 고용해서, 이 야영지 짓는 일을 돕도록 했으며;정기 연락 업무에는 20명 미만의 사람만 배치했다. 12월 말 가까이, 그리고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자가 **주님** 곁에 몰려들었고, **다윗**이 지은 야영지에 기거했다.

6. 70인이 돌아옴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언덕에 가 있는 동안, 70인 사자들이 둘씩 짝지어 **펠라**에 있는 본부에 도착했고, 많은 신자가 그들을 따라왔다. **예수**께서 돌아온 것은 다섯 시 무렵이었는데, 70인 전체가 가르치는 장소에 모여 있었다. 천국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녁 식사가 한 시간 이상 지체됐다. **다윗**의 연락 대원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이 소식 대부분을 전해 주기는 했지만, 새로 임명받은 이 선생들로부터, **훤주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생하게 듣는 것은, 정말로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확장에 중대한 위기가 없게 됐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다.

70인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마귀들까지도 복중”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경 장애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들이 일으킨 놀라운 치료도 여기에 관련시켰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영에 사로잡혔다가 이 사자들로 인해 놓여난 경우가 몇 번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 말씀했다:“**사탄**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으니, 이 불순종의 미숙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이런 소수의 타락한 영이 불행한 필사 정신 속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리 영을 사람의 바로 그 정신 속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해 능력을 가진 것을 나도 기뻐하지만, 이 체험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

being, he proceeded down the lake shore and along the Jordan to a point about one-half mile north of the apostolic camp; and in less than a week he was prepared to offer hospitality to almost fifteen hundred pilgrim visitors. The apostolic camp could accommodate about five hundred. This was the rainy season in Palestine, and these accommodations were required to take care of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inquirers, mostly earnest, who came into Perea to see Jesus and to hear his teaching.

163:5.3 (1806.4) David did all this on his own initiative, though he had taken counsel with Philip and Matthew at Magadan. He employed the larger part of his former messenger corps as his helpers in conducting this camp; he now used less than twenty men on regular messenger duty. Near the end of December and before the return of the seventy, almost eight hundred visitors were gathered about the Master, and they found lodging in David's camp.

6. THE RETURN OF THE SEVENTY

163:6.1 (1806.5) On Friday, December 30, while Jesus was away in the near-by hills with Peter, James, and John, the seventy messengers were arriving by couples, accompanied by numerous believers, at the Pella headquarters. All seventy were assembled at the teaching site about five o'clock when Jesus returned to the camp. The evening meal was delayed for more than an hour while these enthusiasts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related their experiences. David's messengers had brought much of this news to the apostles during previous weeks, but it was truly inspiring to hear these newly ordained teachers of the gospel personally tell how their message had been received by hungry Jews and gentiles. At last Jesus was able to see men going out to spread the good news without his personal presence. The Master now knew that he could leave this world without seriously hinder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163:6.2 (1807.1) When the seventy related how “even the devils were subject” to them, they referred to the wonderful cures they had wrought in the cases of victims of nervous disorders. Nevertheless, there had been a few cases of real spirit possession relieved by these ministers, and referring to these, Jesus said: “It is not strange that these disobedient minor spirits should be subject to you, seeing that I beheld Satan falling as lightning from heaven. But rejoice not so much over this, for I declare to you that, as soon as I return to my Father, we will send forth our spirits into the very minds of men so that no more can these few lost spirits enter the minds of unfortunate mortals. I rejoice with you that you

름이 하늘 명부{名簿}에 기록된 것과,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복하는 끝없는 생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라.”

바로 이때, 저녁 식사를 나누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이 가끔 목격했던 감정적 황홀경의 드문 순간 가운데 하나를 체험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이 영적 영광을 이 천국 자녀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함이 분명히 당신께 기쁨이 됐을 것이며, 내가 당신께로 돌아간 후에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될 것과, 당신이 내게 이루어라고 주신 그 일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권세를 내 손에 맡겨주시려 하는 것과, 오직 당신만이 내가 누구인줄을 참으로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또한 내가 당신을 계시해준 자들만 당신을 참으로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 가운데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이 계시를 마친 후에는, 위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에, 사도와 사역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섰다: “이것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많은 선지자와, 지나간 여러 시대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다수가 너희의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 걸쳐 빛의 자녀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듣고 본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향해 말씀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성읍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는지 들었으며, 내가 보낸 사역자와 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환영받았는지 들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 공동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고라신과 벳새다 유리아 그리고 가버나움의 거민{居民}들, 이 사역자들을 환영하지 않은 도시들에게는 화 있으라.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행한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소위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 사람은, 오래 전에 뉘우쳐 베옷을 입고 재위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날에는, 정말로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께서는 70인과 함께 따로 나가서 말씀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지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매우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좋은 소식을 너희가 가져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뻐다. 그러나 너희는 왜 그토록 놀랄 정도로 의기양양했느냐? 너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have power with men, but be not lifted up because of this experience but the rather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on the rolls of heaven, and that you are thus to go forward in an endless career of spiritual conquest.”

163:6.3 (1807.2) And it was at this time, just before partaking of the evening meal, that Jesus experienced one of those rare moments of emotional ecstasy which his followers had occasionally witnessed. He said: “I thank you, my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while this wonderful gospel was hidden from the wise and self-righteous, the spirit has revealed these spiritual glories to these children of the kingdom. Yes, my Father, it must have been pleasing in your sight to do this, and I rejoice to know that the good news will spread to all the world even after I shall have returned to you and the work which you have given me to perform. I am mightily moved as I realize you are about to deliver all authority into my hands, that only you really know who I am, and that only I really know you, and those to whom I have revealed you. And when I have finished this revelation to my brethren in the flesh, I will continue the revelation to your creatures on high.”

163:6.4 (1807.3)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Father, he turned aside to speak to his apostles and ministers: “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and the ears which hear these things. Let me say 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many of the great men of the past ages have desired to behold what you now see, but it was not granted them. And many generations of the children of light yet to come will, when they hear of these things, envy you who have heard and seen them.”

163:6.5 (1807.4) Then, speaking to all the disciples, he said: “You have heard how many cities and villages have receiv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ow my ministers and teachers have been received by both the Jew and the gentile. And blessed indeed are these communities which have elected to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woe upon the light-rejecting inhabitants of Chorazin, Bethsaida-Julias, and Capernaum, the cities which did not well receive these messengers. I declare that, if the mighty works done in these places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 people of these so-called heathen cities would have long since repented in sackcloth and ashes. It shall indeed be more tolerable for Tyre and Sidon in the day of judgment.”

163:6.6 (1807.5) The next day being the Sabbath, Jesus went apart with the seventy and said to them: “I did indeed rejoice with you when you came back bearing the good tidings of the recep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by so many people scattered throughout Galilee, Samaria, and Judea. But why were you so surprisingly elated?

않으리라고 예상했느냐? 너희는 그 효과에 놀라서 돌아올 만큼,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더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의 기뻐하는 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자만, 즉 영적 자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너희가 사악한 존재인 루시퍼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영적 자만심이든지 진지하게 피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필사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보여줬으며, 의무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기에 싫증내지 말라고 했다. 너희에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를 따라 올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 나는 항상 곁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 앞으로 영원토록 초청할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혼은 영적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시험해 봤을 때, 그 말씀이 참말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도, 이 약속을 시험해 봤고,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

7. 마지막 전도를 위한 준비

그다음 며칠은 **펠라** 야영지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베레아** 전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다. **예수**와 동역자들은, 세 달 동안 **베레아** 전 지역에서 마지막 전도여행에 들어갔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수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에, **예수**와 열두 사도의 본부는 이 곳 **펠라** 야영지에 유지됐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계로 왔으며, 매 주 숫자가 늘었고, 사람들이 **팔레스틴**뿐 아니라 **로마** 지역과 **근동**(近東)의 모든 지방에서 왔다. **주님**께서는 **베레아** 전도여행에 70인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펠라** 야영지에서 보냈으며, 대중을 가르치고 열두 사도에게 설명했다. 이 세 달 동안 내내, 적어도 열 명의 사도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여자 단체 역시, **베레아**의 비교적 큰 여러 성읍에서 사역하기 위해, 70인과 함께 둘씩 짝지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이 여자 집단은 원래 열두 명이었으나, 최근에 50명의 여자로 구성된 더 큰 단체가, 가정 방문을 위해, 그리고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기술을 위해 훈련 받았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 **페르페투아**는, 새로 구성된 여자 단체의 일원이 됐고, **아브넬** 밑에서 여자들의 확대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다.

Did you not expect that your message would manifest power in its delivery? Did you go forth with so little faith in this gospel that you come back in surprise at its effectiveness? And now, while I would not quench your spirit of rejoicing, I would sternly warn you against the subtleties of pride, spiritual pride. If you could understand the downfall of Lucifer, the iniquitous one, you would solemnly shun all forms of spiritual pride.

163:6.7 (1808.1) “You have entered upon this great work of teaching mortal man that he is a son of God. I have shown you the way; go forth to do your duty and be not weary in well doing. To you and to all who shall follow in your steps down through the ages, let me say: I always stand near, and my invitation-call is, and ever shall be,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for I am true and loyal, and you shall find spiritual rest for your souls.”

163:6.8 (1808.2) And they found the Master's words to be true when they put his promises to the test. And since that day countless thousands also have tested and proved the surety of these same promises.

7. PREPARATION FOR THE LAST MISSION

163:7.1 (1808.3) The next few days were busy times in the Pella camp; preparations for the Perea mission were being completed. Jesus and his associates were about to enter upon their last mission, the three months' tour of all Perea, which terminated only upon the Master's entering Jerusalem for his final labors on earth. Throughout this period the headquarters of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as maintained here at the Pella camp.

163:7.2 (1808.4) It was no longer necessary for Jesus to go abroad to teach the people. They now came to him in increasing numbers each week and from all parts, not only from Palestine but from the whole Roman world and from the Near East. Although the Master participated with the seventy in the tour of Perea, he spent much of his time at the Pella camp, teaching the multitude and instructing the twelve. Throughout this three months' period at least ten of the apostles remained with Jesus.

163:7.3 (1808.5) The women's corps also prepared to go out, two and two, with the seventy to labor in the larger cities of Perea. This original group of twelve women had recently trained a larger corps of fifty women in the work of home visitation and in the art of ministering to the sick and the afflicted. Perpetua, Simon Peter's wife, became a member of this new division of the women's corps and was intrusted with the leadership of the enlarged

오순절 이후에, 유명해진 남편과 함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했으며;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던 날, 그 아내도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됐다. 새로 구성된 이 여자 단체 중에는, 빌립의 아내와 마태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제 천국의 일은 예수님의 직접 지도 하에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 현재 단계는, 갈릴리에서 인기를 누렸던 지난 날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異蹟}을 찾아다니던 대중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국면이었다. 그러나 추종자들 중에는, 물질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아버지시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한,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라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자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

women's work under Abner. After Pentecost she remained with her illustrious husband, accompanying him on all of his missionary tours; and on the day Peter was crucified in Rome, she was fed to the wild beasts in the arena. This new women's corps also had as members the wives of Philip and Matthew and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163:7.4 (1808.6) The work of the kingdom now prepared to enter upon its terminal phase under the personal leadership of Jesus. And this present phase was one of spiritual depth in contrast with the miracle-minded and wonder-seeking multitudes who followed after the Master during the former days of popularity in Galilee. However, there were still any number of his followers who were material-minded, and who failed to grasp the truth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founded on the eternal fact of the universal fatherhood of God.

제 164편. 봉헌식 축제

⇨ 163

유랜시아 책

16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64편
봉헌식 축제

섹션

소개

1.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2. 예루살렘에서
3. 눈 먼 거지를 치유함
4.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5.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심

소개

야영지가 펠라에 세워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봉헌식 축제에 참석했다. **요단**을 지나고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도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께서 봉헌식 축제에 정말로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주 진지하게 간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단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소용없었으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산헤드린**의 손아귀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여러 번 간청하고 많이 경고했지만, 예수께서는 오직, “내 때가 오기 전에 빛을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스라엘**의 이 선생들에게 주려 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사도는 자신의 두려운 느낌을 줄곧 표현하고, 결보기에 대담한 그런 시도가 지혜로운지 의심된다고, 계속 투덜거렸다. 그들은 네 시 반쯤에 **여리고**에 도착했고, 거기서 밤을 보낼 숙소를 예비했다.

1.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PAPER 164

AT THE FEAST OF DEDIC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Story of the Good Samaritan
2. At Jerusalem
3. Healing the Blind Beggar
4. Josiah Before the Sanhedrin
5. Teaching in Solomon's Porch

INTRODUCTION

164:0.1 (1809.1) AS THE camp at Pella was being established, Jesus, taking with him Nathaniel and Thomas, secretly went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feast of the dedication. Not until they passed over the Jordan at the Bethany ford, did the two apostles become aware that their Master was going on to Jerusalem. When they perceived that he really intended to be present at the feast of dedication, they remonstrated with him most earnestly, and using every sort of argument, they sought to dissuade him. But their efforts were of no avail; Jesus was determined to visit Jerusalem. To all their entreaties and to all their warnings emphasizing the folly and danger of placing himself in the hands of the Sanhedrin, he would reply only, “I would give these teachers in Israel another opportunity to see the light, before my hour comes.”

164:0.2 (1809.2) On they went toward Jerusalem, the two apostles continuing to express their feelings of fear and to voice their doubts about the wisdom of such an apparently presumptuous undertaking. They reached Jericho about half past four and prepared to lodge there for the night.

1. STORY OF THE GOOD SAMARITAN

그날 저녁에, 여러 사람이 예수와 두 사도에게 질문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사도들이 대답했고, 어떤 것은 주님이 논의했다. 그 저녁에, 어떤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논쟁을 하려고 율법사들이 말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율법과 선지서들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며; 너는 그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예수와 바리새인의 교훈을 다 알았으므로,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진실로 그렇게 하면, 영구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사는 전적으로 진지한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삼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님께 좀 더 다가가서 말했다: “그렇지만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민족의 자녀들”로 규정하는 유대인 법률에 위반되는 대답을 예수께서 하도록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 유대인은 모든 다른 민족을 “이방의 개”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교훈을 잘 알았으므로, 주님이 유대인과는 다르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 그리하여 예수를 유도하여, 신성시되는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사의 의도를 알고, 함정에 빠지는 대신,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는데, 여리고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였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무자비한 강도에게 붙들려서, 모두 빼앗기고 옷도 벗겨졌으며, 매를 맞고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바로 그때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에게 와서, 심히 비참한 상태를 보고, 그 길 다른 편 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이 무렵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건너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왔으며; 그가 심히 강탈당하고 매 맞은 것을 봤을 때, 연민으로 감동돼서,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싸매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보살피었다. 그리고 다음 날 돈을 꺼내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 친구를 잘 보살피 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게 묻겠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게 봉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됐겠느냐?” 율법사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감지하고 대답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다.

164:1.1 (1809.3) That evening a considerable company gathered about Jesus and the two apostles to ask questions, many of which the apostles answered, while others the Master discussed. In the course of the evening a certain lawyer, seeking to entangle Jesus in a compromising disputation, said: “Teacher, I would like to ask you just what I should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answered,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the prophets; how do you read the Scriptures?” The lawyer, knowing the teachings of both Jesus and the Pharisees, answered: “To love the Lord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n said Jesus: “You have answered right; this, if you really do, will lead to life everlasting.”

164:1.2 (1809.4) But the lawyer was not wholly sincere in asking this question, and desiring to justify himself while also hoping to embarrass Jesus, he ventured to ask still another question. Drawing a little closer to the Master, he said, “But, Teacher, I should like you to tell me just who is my neighbor?” The lawyer asked this question hoping to entrap Jesus into making some statement that would contravene the Jewish law which defined one’s neighbor as “the children of one’s people.” The Jews looked upon all others as “gentile dogs.” This lawyer was somewhat familiar with Jesus’ teachings and therefore well knew that the Master thought differently; thus he hoped to lead him into saying something which could be construed as an attack upon the sacred law.

164:1.3 (1810.1) But Jesus discerned the lawyer’s motive, and instead of falling into the trap, he proceeded to tell his hearers a story, a story which would be fully appreciated by any Jericho audience. Said Jesus: “A certain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he fell into the hands of cruel brigands, who robbed him, stripped him and beat him, and departing, left him half dead. Very soon, by chance, a certain priest was going down that way, and when he came upon the wounded man, seeing his sorry plight,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in like manner a Levite also, when he came along and saw the man, passed by on the other side. Now, about this time, a certain Samaritan, as he journeyed down to Jericho, came across this wounded man; and when he saw how he had been robbed and beaten,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and going over to him, he bound up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and setting the man upon his own beast, brought him here to the inn and took care of him. And on the morrow he took out some money and, giving it to the host, said: ‘Take good care of my friend, and if the expense is more, when I come back again, I will repay you.’ Now let me ask you: Which of these three turned out to be the neighbor of him who fell among the robbers?” And when the lawyer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답하게 하려고 던졌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그 대답을, 율법사가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라면 곧바로 이단으로 정죄됐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부정직한 율법사를 난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한 결과가 됐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훈계였고, 동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갖는 모든 **유대인**에게는 멋진 꾸짖음이 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형제간의 사랑을 촉진시켰다.

2.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부터 모인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초막절 축제에 참석했었으며;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산헤드린**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번 더 주려고 봉헌식 축제에 갔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며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곳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25명가량의 **유대인** 지도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무리 중에는 14명의, 그 전에 임명됐거나 새로 임명된 **산헤드린** 회원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에벨**, **마타돌무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참여했다.

이 경우에 **예수**의 청중은 모두 학식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들과 두 사도, 양쪽 다 **주님**이 이 저명한 무리에게 한 말씀의 넓이와 그 깊이에 경탄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서 가르친 이후로, 이때만큼 세속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이토록 박식함을 나타내거나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인격을 신비로워 하면서, 그의 품위 있는 태도에 매혹되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돌아갔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나머지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에 관해, **예수**께 충고하려고 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효과 없을 것임을 잘 알았다.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 대부분이 천국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럼에도,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주님**이 **나다니엘** 및 **도마**와 함께 **감람산**에서 묵으려고 그 밤에 나갔을 때, **산헤드린**의 눈에 띄도록 한 번 더 일하고자 하는 방법

perceived that he had fallen into his own snare, he answered, “He who showed mercy on him.” And Jesus said, “Go and do likewise.”

164:1.4 (1810.2) The lawyer answered, “He who showed mercy,” that he might refrain from even speaking that odious word, Samaritan. The lawyer was forced to give the very answer to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which Jesus wished given, and which, if Jesus had so stated, would have directly involved him in the charge of heresy. Jesus not only confounded the dishonest lawyer, but he told his hearers a story which was at the same time a beautiful admonition to all his followers and a stunning rebuke to all Jews regarding their attitude toward the Samaritans. And this story has continued to promote brotherly love among all who have subsequently believed the gospel of Jesus.

2. AT JERUSALEM

164:2.1 (1810.3) Jesus had attended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he might proclaim the gospel to the pilgrims from all parts of the empire; he now went up to the feast of the dedication for just one purpose: to give the Sanhedrin and the Jewish leaders another chance to see the light. The principal event of these few days in Jerusalem occurred on Friday night at the home of Nicodemus. Here were gathered together some twenty-five Jewish leaders who believed Jesus' teaching. Among this group were fourteen men who were then, or had recently been, members of the Sanhedrin. This meeting was attended by Eber, Matadormus, and Joseph of Arimathea.

164:2.2 (1810.4) On this occasion Jesus' hearers were all learned men, and both they and his two apostles were amazed at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remarks which the Master made to this distinguished group. Not since the times when he had taught in Alexandria, Rome, and in the islands of the Mediterranean, had he exhibited such learning and shown such a grasp of the affairs of men, both secular and religious.

164:2.3 (1810.5) When this little meeting broke up, all went away mystified by the Master's personality, charmed by his gracious manner, and in love with the man. They had sought to advise Jesus concerning his desire to win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Sanhedrin. The Master listened attentively, but silently, to all their proposals. He well knew none of their plans would work. He surmised that the majority of the Jewish leaders never would accept the gospel of the kingdom; nevertheless, he gave them all this one more chance to choose. But when he went forth that night, with Nathaniel and Thomas, to lodge on the Mount of Olives, he had not yet decided upon the method he would pursue in bringing his work once

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었다.

그날 밤에, **나다니엘**과 **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니고데모**의 집에서 들었던 것에 너무 놀랐기 때문이었다. 함께 70인에게 가보자고, **산헤드린** 전직 및 현직 회원인 그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을 그들은 많이 생각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형제들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가 갑절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며, 나를 향해 품은 그들의 미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시하실 방법대로 그들에게 한번 더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각자 가서 영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

more to the notice of the Sanhedrin.

164:2.4 (1811.1) That night Nathaniel and Thomas slept little; they were too much amazed by what they had heard at Nicodemus's house. They thought much over the final remark of Jesus regarding the offer of the former and present members of the Sanhedrin to go with him before the seventy. The Master said: “No, my brethren, it would be to no purpose. You would multiply the wrath to be visited upon your own heads, but you would not in the least mitigate the hatred which they bear me. Go, each of you, about the Father's business as the spirit leads you while I once more bring the kingdom to their notice in the manner which my Father may direct.”

3. 눈 먼 거지를 치유함

이튿날 아침에, 세 사람은 아침을 먹으러 **마르다**의 집에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와 두 사도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안식일**에는 거지들이 구걸하거나 동냥 받는 것이 금지되기는 했지만, 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허용됐다. **예수**께서는 멈춰 서서 거지를 내려다봤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산헤드린**과 다른 **유대인** 지도자 및 종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한 번 더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예수**의 마음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소경된 자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경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아이뿐 아니라, 조상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써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죄를 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은 어떤 죄 또는 다른 어떤 방종함으로 인해 그런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쳤다.

환생(還生)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이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플라톤**, **필로**, 그리고 **에세네파 가운데** 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옛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이 전생(前生)에서 뿌린 씨앗을 한번의 환생에서 거둔다는 의견을 묵인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전생에서 범한 죄 값을 금생(今生)에서 갚는다고 믿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혼에 전생이 없음을 믿도록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3. HEALING THE BLIND BEGGAR

164:3.1 (1811.2) The next morning the three went over to Martha's home at Bethany for breakfast and then went immediately into Jerusalem. This Sabbath morning, as Jesus and his two apostles drew near the temple, they encountered a well-known beggar, a man who had been born blind, sitting at his usual place. Although these mendicants did not solicit or receive alms on the Sabbath day, they were permitted thus to sit in their usual places. Jesus paused and looked upon the beggar. As he gazed upon this man who had been born blind, the idea came into his mind as to how he would once more bring his mission on earth to the notice of the Sanhedrin and the other Jewish leaders and religious teachers.

164:3.2 (1811.3) As the Master stood there before the blind man, engrossed in deep thought, Nathaniel, pondering the possible cause of this man's blindness, asked: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164:3.3 (1811.4) The rabbis taught that all such cases of blindness from birth were caused by sin. Not only were children conceived and born in sin, but a child could be born blind as a punishment for some specific sin committed by its father. They even taught that a child itself might sin before it was born into the world. They also taught that such defects could be caused by some sin or other indulgence of the mother while carrying the child.

164:3.4 (1811.5) There was, throughout all these regions, a lingering belief in reincarnation. The older Jewish teachers, together with Plato, Philo, and many of the Essenes, tolerated the theory that men may reap in one incarnation what they have sown in a previous existence; thus in one life they were believed to be expiating the sins committed in preceding lives. The Master found it difficult to make men believe that their souls had not had previous existences.

아무튼, 보기에도 모순되지만,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추정하면서도, **유대인**은 이 눈 먼 거지들에게 동냥 주는 것이 아주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소경들이, “오 인정 많은 분이시여, 소경을 도와 상을 얻으시오”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나다니엘** 및 **도마**와 토론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한 번 더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그날 하나의 수단으로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했던 이유뿐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연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현상의 참된 원인을 찾도록, 항상 용기를 주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평범한 물질 사건에도 영적 원인을 적용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자주 경고했다.

예수께서는 그날의 과업을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요시아**라는 이름의 그 소경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증거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눈 먼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그렇게 됐지만, 아직 낮일 동안, 우리는 이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을 마치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식일**에 이 소경이 눈을 뜨도록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 소경이 들 수 있게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침을 뱉어 침과 흙을 개어 **요시아**에게 다가가서, 보지 못하는 눈에 흙을 바르고 말씀했다: “**애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흙을 씻어라, 그러면 내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아**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됐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항상 걸인이었으므로, 그 외에 아무 것도 알지 못했으며; 난생처음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자, 늘 자선을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갔다.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눈 먼 거지 **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더러는 그가 맞다 하고, 또 더러는, “아니다, 그 사람과 닮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묻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됐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다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내 이야기를 하더니, 침과

164:3.5 (1811.6) However, inconsistent as it seems, while such blindness was supposed to be the result of sin, the Jews held that it was meritorious in a high degree to give alms to these blind beggars. It was the custom of these blind men constantly to chant to the passers-by, “O tenderhearted, gain merit by assisting the blind.”

164:3.6 (1811.7) Jesus entered into the discussion of this case with Nathaniel and Thomas, not only because he had already decided to use this blind man as the means of that day bringing his mission once more prominently to the notice of the Jewish leaders, but also because he always encouraged his apostles to seek for the true causes of all phenomena, natural or spiritual. He had often warned them to avoid the common tendency to assign spiritual causes to commonplace physical events.

164:3.7 (1812.1) Jesus decided to use this beggar in his plans for that day's work, but before doing anything for the blind man, Josiah by name, he proceeded to answer Nathaniel's question. Said the Master: “Neither did this man sin nor his parents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manifest in him. This blindness has come upon him in the natural course of events, but we must now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still day, for the night will certainly come when it will be impossible to do the work we are about to perform. When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but in only a little while I will not be with you.”

164:3.8 (1812.2) When Jesus had spoken, he said to Nathaniel and Thomas: “Let us create the sight of this blind man on this Sabbath day that the scribes and Pharisees may have the full occasion which they seek for accusing the Son of Man.” Then, stooping over, he spat on the ground and mixed the clay with the spittle, and speaking of all this so that the blind man could hear, he went up to Josiah and put the clay over his sightless eyes, saying: “Go, my son, wash away this clay in the pool of Siloam, and immediately you shall receive your sight.” And when Josiah had so washed in the pool of Siloam, he returned to his friends and family, seeing.

164:3.9 (1812.3) Having always been a beggar, he knew nothing else; so, when the first excitement of the creation of his sight had passed, he returned to his usual place of alms-seeking. His friends, neighbors, and all who had known him aforetime, when they observed that he could see, all said, “Is this not Josiah the blind beggar?” Some said it was he, while others said, “No, it is one like him, but this man can see.” But when they asked the man himself, he answered, “I am he.”

164:3.10 (1812.4) When they began to inquire of him how he was able to see, he answered them: “A man called Jesus came by this way, and when

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게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했더니 내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여, **요시아**를 치유한 이상한 남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주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람은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면서 보게 되리라고 약속한 **예수**가,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던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지만, 당대의 사람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 속에 효험 있음에 대해 깊은 신앙을 가졌으며; **예수**께서 **나다니엘** 및 **도마**와 나누는 대화에서, **요시아**는 어느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선생, 또는 거룩한 선지자에서 은혜를 받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했다.

예수께서 흙과 침을 사용하고,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지시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1.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온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으키기로 선택한 기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2. 소경은 치유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가 신앙을 거의 갖지 못했으므로, 이 물질적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는 침의 효과를 미신적으로 믿었으며, **실로암** 연못을 다소 신성한 장소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바른 진흙을 씻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그 진행사항에 충분한 정도만의 형식이 있었을 뿐이다.

3. 그러나 **예수**께서, 이 독특한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물질 수단에 부여한 셋째 이유가 있었는데: 이 기적은 오직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는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도, 추종자들이 환자의 치료에 물질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기적만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시력을 회복시켰으며,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한 것은, **산헤드린**과 **유대인** 선생 및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공개적 도전을 위해 이 일을 꾸민, 주된 목적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의 공개적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예수**의 방법

talking about me with his friends, he made clay with spittle, anointed my eyes, and directed that I should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I did what this man told me, and immediately I received my sight. And that is only a few hours ago. I do not yet know the meaning of much that I see.” And when the people who began to gather about him asked where they could find the strange man who had healed him, Josiah could answer only that he did not know.

164:3.11 (1812.5) This is one of the strangest of all the Master's miracles. This man did not ask for healing. He did not know that the Jesus who had directed him to wash at Siloam, and who had promised him vision, was the prophet of Galilee who had preached in Jerusalem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This man had little faith that he would receive his sight, but the people of that day had great faith in the efficacy of the spittle of a great or holy man; and from Jesus' conversation with Nathaniel and Thomas, Josiah had concluded that his would-be benefactor was a great man, a learned teacher or a holy prophet; accordingly he did as Jesus directed him.

164:3.12 (1812.6) Jesus made use of the clay and the spittle and directed him to wash in the symbolic pool of Siloam for three reasons:

164:3.13 (1812.7) 1. This was not a miracle response to the individual's faith. This was a wonder which Jesus chose to perform for a purpose of his own, but which he so arranged that this man might derive lasting benefit therefrom.

164:3.14 (1813.1) 2. As the blind man had not asked for healing, and since the faith he had was slight, these material acts were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him. He did believe in the superstition of the efficacy of spittle, and he knew the pool of Siloam was a semisacred place. But he would hardly have gone there had it not been necessary to wash away the clay of his anointing. There was just enough ceremony about the transaction to induce him to act.

164:3.15 (1813.2) 3. But Jesus had a third reason for resorting to these material means in connection with this unique transaction: This was a miracle wrought purely in obedience to his own choosing, and thereby he desired to teach his followers of that day and all subsequent ages to refrain from despising or neglecting material means in the healing of the sick. He wanted to teach them that they must cease to regard miracles as the only method of curing human diseases.

164:3.16 (1813.3) Jesus gave this man his sight by miraculous working, on this Sabbath morning and in Jerusalem near the temple, for the prime purpose of making this act an open challenge to the Sanhedrin and all the Jewish teachers and religious leaders. This was his way of proclaiming

이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안식일** 오후 일찍 두 사도를 이 사람에게 데려온 것과, **바리새인**에게 그 기적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도록 그 변론을 일부러 자극시킨 것은, 이 문제가 **산헤드린** 앞에 제기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4.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오후 중간 무렵에, **요시아**가 치유 받은 사건이 성전 주변에서 큰 이야깃거리를 만들었으므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늘 만나던 성전 회합 장소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산헤드린**이 소집되지 못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고발하는 주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알고,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한 것이 **산헤드린** 앞에 고발돼서 재판 받기 바랐으며, 그때 자비를 베푸는 행동에 대해 그를 심판하는 바로 그 **유대인** 대법정 재판소가, **안식일**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법률을 직접 위반하는 가운데, 심의하게 되기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자기네 앞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대신에, 그들은 즉시 **요시아**를 데려오게 했다. 몇 가지 기본 질문을 한 후에, (약 50명의 회원이 참여한) **산헤드린**의 대변자가 **요시아**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다. **요시아**는 그날 아침 눈을 뜨게 된 후에, **도마**,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안식일**에 치유 받은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 전부에게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요시아**는, **예수**께서 **구원주**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임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 사람이 와서,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며, 내가 지금 봅니다”라고 말했다.

나이 많은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긴 연설을 한 후에 말했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을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첫째로, 흙을 빚었다는 것과, 다음에는,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이 거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는 율법을 어겼다.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러자 몰래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가 평범한 죄인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지를 알고, 또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을 아는데; 지금은 그가 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선지자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시렵니까?”

an open break with the Pharisees. He was always positive in everything he did. And it was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se matters before the Sanhedrin that Jesus brought his two apostles to this man early in the afternoon of this Sabbath day and deliberately provoked those discussions which compelled the Pharisees to take notice of the miracle.

4. JOSIAH BEFORE THE SANHEDRIN

164:4.1 (1813.4) By midafternoon the healing of Josiah had raised such a discussion around the temple that the leaders of the Sanhedrin decided to convene the council in its usual temple meeting place. And they did this in violation of a standing rule which forbade the meeting of the Sanhedrin on the Sabbath day. Jesus knew that Sabbath breaking would be one of the chief charges to be brought against him when the final test came, and he desired to be brought before the Sanhedrin for adjudication of the charge of having healed a blind man on the Sabbath day, when the very session of the high Jewish court sitting in judgment on him for this act of mercy would be deliberating on these matters on the Sabbath day and in direct violation of their own self-imposed laws.

164:4.2 (1813.5) But they did not call Jesus before them; they feared to. Instead, they sent forthwith for Josiah. After some preliminary questioning, the spokesman for the Sanhedrin (about fifty members being present) directed Josiah to tell them what had happened to him. Since his healing that morning Josiah had learned from Thomas, Nathaniel, and others that the Pharisees were angry about his healing on the Sabbath, and that they were likely to make trouble for all concerned; but Josiah did not yet perceive that Jesus was he who was called the Deliverer. So, when the Pharisees questioned him, he said: “This man came along, put clay upon my eyes, told me to go wash in Siloam, and I do now see.”

164:4.3 (1813.6) One of the older Pharisees, after making a lengthy speech, said: “This man cannot be from God because you can see that he does not observe the Sabbath. He violates the law, first, in making the clay, then, in sending this beggar to wash in Siloam on the Sabbath day. Such a man cannot be a teacher sent from God.”

164:4.4 (1813.7) Then one of the younger men who secretly believed in Jesus, said: “If this man is not sent by God, how can he do these things? We know that one who is a common sinner cannot perform such miracles. We all know this beggar and that he was born blind; now he sees. Will you still say that this prophet does all these wonders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And for every

예수를 감히 고소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바리새인**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스런 질문을 했으므로, 그들 가운데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함을 보고,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 **요시아**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네 눈을 뜨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이 **예수**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요시아**는: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도자들은 크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가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시아**의 부모를 데려오게 했다. 그들은 그 거지가 치유 받았다는 것을 몹시 믿기 싫었다.

예수께서 회당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이 알았으며; 이렇게 됨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는, 전체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왔을 때, 위엄에 찬 **산헤드린** 앞에 세워진, 이 가난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요시아**의 부모는, 자유롭게 말하기를 무서워했다. 법정변론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이 사실이나?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요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직접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당장 **요시아**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세웠다. 정식 재판 절차에 매달려서는 그들의 책략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므로; **요시아**를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재판관이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너는 왜 진실을 분별하지 않으려 하느냐? 너는 너 자신과 그 사람 둘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음을 안다. 네가 오늘 눈을 뜨게 됐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너의 치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네 죄를 속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요시아**는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실제

Pharisee who dared to accuse and denounce Jesus one would arise to ask entangling and embarrassing questions, so that a serious division arose among them. The presiding officer saw whither they were drifting, and in order to allay the discussion, he prepared further to question the man himself. Turning to Josiah, he said: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this man, this Jesus, whom you claim opened your eyes?” And Josiah answered, “I think he is a prophet.”

164:4.5 (1814.1) The leaders were greatly troubled and, knowing not what else to do, decided to send for Josiah's parents to learn whether he had actually been born blind. They were loath to believe that the beggar had been healed.

164:4.6 (1814.2) It was well known about Jerusalem, not only that Jesus was denied entrance into all synagogues, but that all who believed in his teaching were likewise cast out of the synagogue, excommunicated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and this meant denial of all rights and privileges of every sort throughout all Jewry except the right to buy the necessities of life.

164:4.7 (1814.3) When, therefore, Josiah's parents, poor and fear-burdened souls, appeared before the august Sanhedrin, they were afraid to speak freely. Said the spokesman of the court: “Is this your son? and do we understand aright that he was born blind? If this is true, how is it that he can now see?” And then Josiah's father, seconded by his mother, answered: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and that he was born blind, but how it is that he has come to see, or who it was that opened his eyes, we know not. Ask him; he is of age; let him speak for himself.”

164:4.8 (1814.4) They now called Josiah up before them a second time. They were not getting along well with their scheme of holding a formal trial, and some were beginning to feel strange about doing this on the Sabbath; accordingly, when they recalled Josiah, they attempted to ensnare him by a different mode of attack. The officer of the court spoke to the former blind man, saying: “Why do you not give God the glory for this? why do you not tell us the whole truth about what happened? We all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Why do you refuse to discern the truth? You know that both you and this man stand convicted of Sabbath breaking. Will you not atone for your sin by acknowledging God as your healer, if you still claim that your eyes have this day been opened?”

164:4.9 (1814.5) But Josiah was neither dumb nor lacking in humor; so he replied to the officer of the court: “Whether this man is a sinner, I know not; but one thing I do know —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And since they could not entrap Josiah, they sought further to question him, asking: “Just how did he open your eyes? what did

로 내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기를 믿으라고 내게 요구했느냐?”

요시아는 약간 조금하게 대답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왜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말하자, **산헤드린**은 혼란에 빠져서 거의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지도자들이 **요시아**에게 달려들어 화내며 소리쳤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자 **요시아**는 결상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소리 높여 외쳤다: “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증언을 듣고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과; 오직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 즉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 됐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창세{創世}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음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으십시오!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온전히 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됐던 것이 아닐 것이며, 네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들은 **요시아**를 쫓아내려고 회당으로 즉시 달려갔다.

요시아는 **예수**에 대해 그리고 그의 치유의 본질에 대해 거의 모르는 채 이 재판에 회부됐었다. 온 **이스라엘**의 이 최고 법정 앞에서 그가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하게 제시했던 대담한 증언 대부분은, 재판이 매 순간마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진행될 때, 그의 정신 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5.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심

안식일을 위반하는 이 **산헤드린** 회의가 성전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내내,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신성한 아들신분을 이루는 기쁨과 자유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거닐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타날 때

he actually do to you? what did he say to you? did he ask you to believe in him?”

164:4.10 (1814.6) Josiah replied, somewhat impatiently: “I have told you exactly how it all happened, and if you did not believe my testimony, why would you hear it again? Would you by any chance also become his disciples?” When Josiah had thus spoken, the Sanhedrin broke up in confusion, almost violence, for the leaders rushed upon Josiah, angrily exclaiming: “You may talk about being this man’s disciple, but we are disciples of Moses, and we are the teachers of the laws of God. We know that God spoke through Moses, but as for this man Jesus, we know not whence he is.”

164:4.11 (1814.7) Then Josiah, standing upon a stool, shouted abroad to all who could hear, saying: “Hearken, you who claim to be the teachers of all Israel, while I declare to you that herein is a great marvel since you confess that you know not whence this man is, and yet you know of a certainty, from the testimony which you have heard, that he opened my eyes. We all know that God does not perform such works for the ungodly; that God would do such a thing only at the request of a true worshiper — for one who is holy and righteous. You know that no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the opening of the eyes of one who was born blind. Look, then, all of you, upon me and realize what has been done this day in Jerusalem! I tell you,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not do this.” And as the Sanhedrists departed in anger and confusion, they shouted to him: “You were altogether born in sin, and do you now presume to teach us? Maybe you were not really born blind, and even if your eyes were opened on the Sabbath day, this was done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And they went at once to the synagogue to cast out Josiah.

164:4.12 (1815.1) Josiah entered this trial with meager ideas about Jesus and the nature of his healing. Most of the daring testimony which he so cleverly and courageously bore before this supreme tribunal of all Israel developed in his mind as the trial proceeded along such unfair and unjust lines.

5. TEACHING IN SOLOMON’S PORCH

164:5.1 (1815.2) All of the time this Sabbath-breaking session of the Sanhedrin was in progress in one of the temple chambers, Jesus was walking about near at hand, teaching the people in Solomon’s Porch, hoping that he would be summoned before the Sanhedrin where he could tell them the good news of the liberty and joy of divine sonship in the kingdom of God. But they were afraid to send for him. They were always disconcerted by these sudden and public appearances of Jesus in

다 항상 당황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찾던 바로 그 기회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예수를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출두시키기를 두려워했고, 체포하기는 더 두려워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기는 겨울 중간 무렵이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부분적으로 가려진 장소에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예수께서 거닐 때 무리가 많은 질문을 했고, 두 시간 이상 그들을 가르쳤다. 어떤 **유대인** 선생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공연하게 질문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게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나 자신과 내 **아버지**에 관해 여러 번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들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매혹을 느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萬有)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믿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으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말렸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쳤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많은 애정 어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는데, 이 선한 일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에 대해 돌을 던지려는 것인데, 사람이면서 감히 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을 때, 너희가 나를 믿기를 거절했으므로 **사람의 아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우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장하겠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같이, 나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려고 달려 나왔으나, **예수**께서는 성전 안쪽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며; **산헤드린**에 참석했던 **나다니엘**과 **도마**를 만나서, **요시아**가 회의장에서 나를 때까지 성전 근처에서 기다렸다.

예수와 두 사도는, **요시아**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집에 당도했을 때, **도**

Jerusalem. The very occasion they had so ardently sought, Jesus now gave them, but they feared to bring him before the Sanhedrin even as a witness, and even more they feared to arrest him.

164:5.2 (1815.3) This was midwinter in Jerusalem, and the people sought the partial shelter of Solomon's Porch; and as Jesus lingered, the crowds asked him many questions, and he taught them for more than two hours. Some of the Jewish teachers sought to entrap him by publicly asking him: "How long will you hold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Messiah, why do you not plainly tell us?" Said Jesus: "I have told you about myself and my Father many times, but you will not believe me. Can you not see that the works I do in my Father's name bear witness for me? But many of you believe not because you belong not to my fold. The teacher of truth attracts only those who hunger for the truth and who thirst for righteousness.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to all who follow my teaching I give eternal life; they shall never perish, and no one sha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me these children, is greater than all, so that no one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The Father and I are one." Some of the unbelieving Jews rushed over to where they were still building the temple to pick up stones to cast at Jesus, but the believers restrained them.

164:5.3 (1815.4) Jesus continued his teaching: "Many loving works have I shown you from the Father, so that now would I inquire for which one of these good works do you think to stone me?" And then answered one of the Pharisees: "For no good work would we stone you but for blasphemy, inasmuch as you, being a man, dare to make yourself equal with God." And Jesus answered: "You charge the Son of Man with blasphemy because you refused to believe me when I declared to you that I was sent by God. If I do not the works of God, believe me not, but if I do the works of God, even though you believe not in me, I should think you would believe the works. But that you may be certain of what I proclaim, let me again assert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and that, as the Father dwells in me, so will I dwell in every one who believes this gospel." And when the people heard these words, many of them rushed out to lay hands upon the stones to cast at him, but he passed out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and meeting Nathaniel and Thomas, who had been in attendance upon the session of the Sanhedrin, he waited with them near the temple until Josiah came from the council chamber.

164:5.4 (1816.1) Jesus and the two apostles did not go in search of Josiah at his home until they heard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When they

마가 그를 마당으로 불러냈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시아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그를 보고 들었으며, 지금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그러자 요시아가 말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요시아는, 자신이 회당에서 쫓겨났음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매우 우울했지만, 예수께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같이 가도록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때, 매우 용기를 얻었다. 천진한 마음을 지닌 이 예루살렘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영적 귀인(貴人)들과 연합되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한 우주의 창조주를 봤다.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두 사도 및 요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시아는 주님의 기적 행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 많은 결실을 맺은 장본인이 됐는데, 일생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 하는 설교자가 됐기 때문이다.

came to his house, Thomas called him out in the yard, and Jesus, speaking to him, said: “Josiah,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God?” And Josiah answered, “Tell me who he is that I may believe in him.” And Jesus said: “You have both seen and heard him, and it is he who now speaks to you.” And Josiah said, “Lord, I believe,” and falling down, he worshiped.

164:5.5 (1816.2) When Josiah learned that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he was at first greatly downcast, but he was much encouraged when Jesus directed that he should immediately prepare to go with them to the camp at Pella. This simple-minded man of Jerusalem had indeed been cast out of a Jewish synagogue, but behold the Creator of a universe leading him forth to becom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nobility of that day and generation.

164:5.6 (1816.3) And now Jesus left Jerusalem, not again to return until near the time when he prepared to leave this world. With the two apostles and Josiah the Master went back to Pella. And Josiah proved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Master’s miraculous ministry who turned out fruitfully, for he became a lifelong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제165편. 베레아 전도가 시작됨

⇨ 164

유랜시아 책

16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65편
베레아 전도가 시작됨

섹션

소개

1. 펠라 야영지에서
2.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
3. 펠라에서 안식일 설교
4. 유산을 나눔
5. 재산에 관해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6.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심

PAPER 165

THE PEREAN MISSION BEGINS

SECTIONS

Introduction

1. At the Pella Camp
2. Sermon on the Good Shepherd
3. Sabbath Sermon at Pella
4. Dividing the Inheritance
5. Talks to the Apostles on Wealth
6. Answer to Peter's Question

소개

서기 30년 1월 3일 화요일에, **베레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 선교하도록 동역자들을 보내기에 앞서, **아브넬**이 그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 지시를 했는데, **아브넬**은, 전에는 **나실인**이며 한때 **엔게디**에 있는 **나실인** 학교 교장이었던 **세레 요한**의 열두 사도의 우두머리였고, 지금은 70인 천국 사자(使者)의 우두머리였다. 이번 **베레아** 전도는 거의 세 달 동안 계속됐으며,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육신을 입은 상태로는 마지막 체험을 하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70인은 **예수**와 열두 사도의 도움을 잠깐씩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도시, 성읍, 및 추가적인 50여개의 마을에서 일했다: **자폰, 가다라, 마카드, 아르벨라, 라맛, 에드레이, 보소라, 카스핀, 미스페, 거라사, 라가바, 숙곳, 아마수스, 아담, 페누엘, 카피톨리아, 디온, 하티타, 가다, 필라델피아, 욱베하, 길리드, 벤_니므라, 타이러스, 엘리라, 리비아, 헤시본, 칼리호, 벤_페울, 싯딤, 십마, 메데바, 벤_메온, 아레오폴리스, 아로엘.**

이제 62명이 된 여자 단체는, 이 **베레아** 전도 여행의 전체 기간에 환자 돌보는 일을 거의 도맡아서 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의 비교적 더 높은 영적인 면들이 발전된 마지막 기간이었으며, 따라서

INTRODUCTION

^{165:0.1 (1817.1)} ON TUESDAY, January 3, A.D. 30, Abner, the former chief of the twelve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a Nazarite and onetime head of the Nazarite school at Engedi, now chief of the seventy messengers of the kingdom,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gave them final instructions before sending them on a mission to all of the cities and villages of Perea. This Perean mission continued for almost three months and was the last ministry of the Master. From these labors Jesus went directly to Jerusalem to pass through his final experiences in the flesh. The seventy, supplemented by the periodic labors of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orked in the following cities and towns and some fifty additional villages: Zaphon, Gadara, Macad, Arbela, Ramath, Edrei, Bosora, Caspin, Mispeh, Gerasa, Ragaba, Succoth, Amathus, Adam, Penuel, Capitolias, Dion, Hatita, Gadda, Philadelphia, Jogbehah, Gilead, Beth-Nimrah, Tyrus, Elealah, Livias, Heshbon, Callirrhoe, Beth-Peor, Shittim, Sibmah, Medeba, Beth-Meon, Areopolis, and Aroer.

^{165:0.2 (1817.2)} Throughout this tour of Perea the women's corps, now numbering sixty-two, took over most of the work of ministration to the sick. This was the final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the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예수**의 사도와 제자들은, **팔레스틴**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철저히 일한 적이 없었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상류 계층의 시민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널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베레아**에는 거의 같은 숫자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으며, **유대인**은 주로 **유다 마카비** 시대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베레아**는 **팔레스틴**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지역이었다. **유대인**은 대개 이곳을 “**요단강** 저편 땅”이라고 불렀다.

이 기간 내내, **예수**께서는 시간을 나눠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에 있기도 하고,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70인을 돕기 위해, 열두 사도와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비록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70인은 **아브넬**의 지시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1. 펠라 야영지에서

1월 중순경에, 1,200명 이상이 **펠라**에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야영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적어도 매일 한 번씩 대중을 가르쳤고, 비로 방해받지 않으면 대개 아침 아홉 시부터 말씀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매일 오후에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 및 다른 노련한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평범한 학습으로 매일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 저녁 모임은 보통 50명 정도 됐다.

3월 중순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4천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아침마다 모였다. **주님**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세상에서 업무를 마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정점{頂點}은 천국이 진보하던 중에 이 둘째 단계, 즉 기적이 없는 국면에서 달성됐다. 모인 대중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진리 탐구자였지만, **예루살렘** 및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트집 잡으려는 자도 많이 있었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펠라** 야영지에 모인 대중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열두 사도는 실제 업무에는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함께 **아브넬**의 동역자들을 방문하러 이따금씩 나갔을 뿐이다. **아브넬**은, 전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대부분의 일을 여기서 했으므로, **베레아** 지역에 매우 익숙했다. **베레아** 전도가 시작된 후에, **아브넬**과 70인은 결코 **펠라**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higher spiritual aspect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re was, accordingly, an absence of miracle working. No other part of Palestine was so thoroughly worked by the apostles and disciples of Jesus, and in no other region did the better classes of citizens so generally accept the Master's teaching.

165:0.3 (1817.3) Perea at this time was about equally gentile and Jewish, the Jews having been generally removed from these regions during the times of Judas Maccabee. Perea was the most beautiful and picturesque province of all Palestine. It was generally referred to by the Jews as “the land beyond the Jordan.”

165:0.4 (1817.4) Throughout this period Jesus divided his time between the camp at Pella and trips with the twelve to assist the seventy in the various cities where they taught and preached. Under Abner's instructions the seventy baptized all believers, although Jesus had not so charged them.

1. AT THE PELLA CAMP

165:1.1 (1817.5) By the middle of January more than twelve hundred persons were gathered together at Pella, and Jesus taught this multitude at least once each day when he was in residence at the camp, usually speaking at nine o'clock in the morning if not prevented by rain.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taught each afternoon. The evenings Jesus reserved for the usual sessions of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twelve and other advanced disciples. The evening groups averaged about fifty.

165:1.2 (1817.6) By the middle of March, the time when Jesus began his journey toward Jerusalem, over four thousand persons composed the large audience which heard Jesus or Peter preach each morning. The Master chose to terminate his work on earth when the interest in his message had reached a high point, the highest point attained under this second or nonmiraculous phase of the progress of the kingdom. While three quarters of the multitude were truth seekers, there were also present a large number of Pharisees from Jerusalem and elsewhere, together with many doubters and cavilers.

165:1.3 (1818.1)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devoted much of their time to the multitude assembled at the Pella camp. The twelve paid little or no attention to the field work, only going out with Jesus to visit Abner's associates from time to time. Abner was very familiar with the Perea district since this was the field in which his former master, John the Baptist, had done most of his work. After beginning the Perea mission, Abner and the seventy never returned to the Pella camp.

2.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

300명 이상의 **예루살렘** 주민, **바리새인**,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 일행이, 봉헌식 축제가 끝날 무렵에 **유대인** 통치자들의 관할 구역에서 서둘러 떠나는 **예수**를 따라서 북쪽으로 **펠라**까지 왔으며; **예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해 설교한 것은, 열두 사도는 물론 이 **유대인** 선생과 지도자들도 참석 한 자리에서였다. 약 100명 정도 되는 집단과 이야기하면서 30분가량 자유로운 토론을 한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오늘밤에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여럿이 내 제자이지만, 증오에 차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니, 너희는 각자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해라.

“이 밤에, 내 앞에는 나와 천국의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앞으로 순교할 자도 있으며; 또 너희 가운데 더러는 전통에 노예 된 자인데, 음흉하고 속이기를 즐기는 너희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를 따라와서, **사람의 아들**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한다. 내가 지금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생애가, 너희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양쪽 다 심판할 것이다. 거짓 목자가 눈멀었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겠지만, 너희는 본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장 하니; 너희의 죄는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있다.

“참 목자는, 위험한 때가 되면 자기 양 무리를 밤에 우리 속으로 모은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가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서 부를 때,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간 목자는 누구든지 도둑이며 강도다. 참 목자는,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 준 후에 우리로 들어가며, 그의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의 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며; 그의 양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참 목자는 그들 앞에 먼저 가며; 그가 길을 인도하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의 양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며; 양들은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기에 낯선 자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여기 우리와 함께 모인 이 대중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우리를 따라오며; 적어도,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은 그렇게 한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내 양떼가 아니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너희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쳤을 때, 그에게 질문

2. SERMON ON THE GOOD SHEPHERD

165:2.1 (1818.2) A company of over three hundred Jerusalemites, Pharisees and others, followed Jesus north to Pella when he hastened awa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Jewish rulers at the ending of the feast of the dedication; and it was in the presence of these Jewish teachers and leaders, as well as in the hearing of the twelve apostles, that Jesus preached the sermon on the “Good Shepherd.” After half an hour of informal discussion, speaking to a group of about one hundred, Jesus said:

165:2.2 (1818.3) “On this night I have much to tell you, and since many of you are my disciples and some of you my bitter enemies, I will present my teaching in a parable, so that you may each take for yourself that which finds a reception in your heart.

165:2.3 (1818.4) “Tonight, here before me are men who would be willing to die for me and for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some of them will so offer themselves in the years to come; and here also are some of you, slaves of tradition, who have followed me down from Jerusalem, and who, with your darkened and deluded leaders, seek to kill the Son of Man.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shall judge both of you, the true shepherds and the false shepherds. If the false shepherd were blind, he would have no sin, but you claim that you see; you profess to be teachers in Israel; therefore does your sin remain upon you.

165:2.4 (1818.5) “The true shepherd gathers his flock into the fold for the night in times of danger. And when the morning has come, he enters into the fold by the door, and when he calls, the sheep know his voice. Every shepherd who gains entrance to the sheepfold by any other means than by the door is a thief and a robber. The true shepherd enters the fold after the porter has opened the door for him, and his sheep, knowing his voice, come out at his word; and when they that are his are thus brought forth, the true shepherd goes before them; he leads the way and the sheep follow him.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they will not follow a stranger. They will flee from the stranger because they know not his voice. This multitude which is gathered about us here a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but when we speak to them, they know the shepherd's voice, and they follow after us; at least, those who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do. Some of you are not of my fold; you know not my voice, and you do not follow me. And because you are false shepherds, the sheep know not your voice and will not follow you.”

165:2.5 (1819.1) And when Jesus had spoken this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내 **아버지**의 양 무리에게 대리_목자가 되려는 너희는, 제 값을 하는 지도자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그 무리를 **먹여야** 하며; 옆에 잔잔한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양 무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중에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확실히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의 양 무리에 들어가는 문이며, 동시에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참 목자다. 나 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목자는 누구든지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돌보는 그들에게는, 내가 문이다. 내가 만들고 제정한 방법대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낙원**의 영원한 초장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양을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놓는 참 목자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려고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생명을 갖되 더 풍성히 갖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샅을 받고 일하는 자는, 위험이 닥칠 때 양들이 모두 흩어져서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칠 것이나; 참 목자는 늑대가 올 때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자기 양 무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이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참 목자이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또한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위험이 닥쳐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이 봉사를 완수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무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많이 있으며, 이 말은 오직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알아보며, 모두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한 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두, 한 목자, 즉 참 목자의 음성을 알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양 무리를 전부 내 손에 맡기셨는지 알게 될 것인데; 내가 양 무리를 안전하게 지키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 내가 내 양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다양한 양 무리를 위해 서슴없이 내 생명을 바치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다른 피조물이든지, 내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도 똑같이 가졌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런 권세를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parable, no one asked him a question. After a time he began again to speak and went on to discuss the parable:

165:2.6 (1819.2) “You who would be the undershepherds of my Father’s flocks must not only be worthy leaders, but you must also feed the flock with good food; you are not true shepherds unless you lead your flocks into green pastures and beside still waters.

165:2.7 (1819.3) “And now, lest some of you too easily comprehend this parable, I will declare that I am both the door to the Father’s sheepfold and at the same time the true shepherd of my Father’s flocks. Every shepherd who seeks to enter the fold without me shall fail, and the sheep will not hear his voice. I, with those who minister with me, am the door. Every soul who enters upon the eternal way by the means I have created and ordained shall be saved and will be able to go on to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pastures of Paradise.

165:2.8 (1819.4) “But I also am the true shepherd who is willing even to lay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thief breaks into the fold only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but I have come that you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He who is a hireling, when danger arises, will flee and allow the sheep to be scattered and destroyed; but the true shepherd will not flee when the wolf comes; he will protect his flock and, if necessary, lay down his life for his sheep. Verily, verily, I say to you, friends and enemies, I am the true shepher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I will not flee in the face of danger. I will finish this service of the completion of my Father’s will, and I will not forsake the flock which the Father has intrusted to my keeping.

165:2.9 (1819.5) “But I have many other sheep not of this fold, and these words are true not only of this world. These other sheep also hear and know my voice, and I have promised the Father that they shall all be brought into one fold, one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And then shall you all know the voice of one shepherd, the true shepherd, and shall all acknowledge the fatherhood of God.

165:2.10 (1819.6) “And so shall you know why the Father loves me and has put all of his flocks in this domain in my hands for keeping; it is because the Father knows that I will not falter in the safeguarding of the sheepfold, that I will not desert my sheep, and that, if it shall be required, I will not hesitate to lay down my life in the service of his manifold flocks. But, mind you, if I lay down my life, I will take it up again. No man nor any other creature can take away my life. I have the right and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I have the same power and right to take it up again. You cannot understand this, but I received such authority from my Father even before this world was.”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리둥절했고, 제자들은 몹시 놀랐으며, 한편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온 **바리새인**은 어두움 속으로 나가 말하기를, “저 자는 미쳤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선생들은: “그는 마치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말씀하며; 더욱이, 마귀가 들어 있는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든지, 이 분이 한 것 같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유대인** 선생들 가운데 반 정도는 다음 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며, 나머지 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예루살렘**과 집으로 돌아갔다.

3. 펠라에서 안식일 설교

1월 말에 **안식일** 오후가 되자, 대중의 숫자는 거의 3천 명에 이르렀다. 1월 28일 토요일에, **예수**께서는 “신뢰와 영적 방어태세”에 대해 기억에 남는 설교를 했다. **시몬 베드로**가 서론적 발표를 한 후에, **주님**이 말씀했다:

“내가 그동안 사도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이제 이 대중에게도 분명히 말하는데: 선입견을 고수하고 전통의 노예로 길들여진,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 가운데 다수는 마음이 정직하며, 그들 중에 더러는 내 제자가 되어 이곳에 있다. 이제 곧 너희는 모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춰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에게 숨겨진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명을 완수할 때 전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비밀리에 어두움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곧, 속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붕 위에서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찾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너희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불의에서 구출하고 우주의 심판 자리 앞에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진술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를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충고한다.

참새 다섯 마리가 동전 두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있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모르시고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스랍 수호자들은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왜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 닥쳐오는 많은 사소한 일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165:2.11 (1819.7) When they heard these words, his apostles were confused, his disciples were amazed, while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and around about went out into the night, saying, “He is either mad or has a devil.” But even some of the Jerusalem teachers said: “He speaks like one having authority; besides, who ever saw one having a devil open the eyes of a man born blind and do all of the wonderful things which this man has done?”

165:2.12 (1819.8) On the morrow about half of these Jewish teachers professed belief in Jesus, and the other half in dismay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ir homes.

3. SABBATH SERMON AT PELLA

165:3.1 (1819.9) By the end of January the Sabbath-afternoon multitudes numbered almost three thousand. On Saturday, January 28, Jesus preached the memorable sermon on “Trust and Spiritual Preparedness.” After preliminary remarks by Simon Peter, the Master said:

165:3.2 (1820.1) “What I have many times said to my apostles and to my disciples, I now declare to this multitude: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born of prejudice and nurtured in traditional bondage, albeit many of these Pharisees are honest of heart and some of them abide here as my disciples. Presently all of you shall understand my teaching, for there is nothing now covered that shall not be revealed. That which is now hid from you shall all be made known when the Son of Man has completed his mission on earth and in the flesh.

165:3.3 (1820.2) “Soon, very soon, will the things which our enemies now plan in secrecy and in darkness be brought out into the light and be proclaimed from the housetops. But I say to you, my friends, when they seek to destroy the Son of Man, be not afraid of them. Fear not those who, although they may be able to kill the body, after that have no more power over you. I admonish you to fear none, in heaven or on earth, but to rejoice in the knowledge of Him who has power to deliver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the judgment seat of a universe.

165:3.4 (1820.3)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And yet, when these birds flit about in quest of their sustenance, not one of them exist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Father, the source of all life. To the seraphic guardians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And if all of this is true, why should you live in fear of the many trifles which come up in your daily lives? I say to you: Fear not; you are of much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사람들 앞에서 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너희 모두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곧 인정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교훈의 진리를 고의로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운명의 수호자가 부인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에 관해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겠지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서도 악한 존재가 한 것으로 돌리려는 경향에 너무 깊이 빠져들 때, 그런 고의적인 반역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회당 관리 앞이나 다른 높은 권세자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너희가 천국 복음에 경의를 표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확실히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단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려느냐? 너희는 왜 두 견해 사이에서 망설이느냐?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찌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영적 유산을 기쁘게 얻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더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계시하고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라고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늘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초청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게 해서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이 사도들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으로 갔으며,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4. 유산을 나눈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 줄 때, **주님**은 남아있는 자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주님**,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나와 내 형제에게 남겨 주셨습니 다만, 내 형제가 내 몫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내 형제에게 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물질을 탐하는 이 젊은이가 장삿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려는 것에 다소 화가 났지만, 이 경우를 그 이상{以上}의 교육에 이용하고자 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에 내가 관심 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

165:3.5 (1820.4) “All of you who have had the courage to confess faith in my gospel before men I will presently acknowledge before the angels of heaven; but he who shall knowingly deny the truth of my teachings before men shall be denied by his guardian of destiny even before the angels of heaven.

165:3.6 (1820.5) “Say what you will about the Son of Man, and it shall be forgiven you; but he who presumes to blaspheme against God shall hardly find forgiveness. When men go so far as knowingly to ascribe the doings of God to the forces of evil, such deliberate rebels will hardly seek forgiveness for their sins.

165:3.7 (1820.6) “And when our enemies bring you before the rulers of the synagogues and before other high authorities, be not concerned about what you should say and be not anxious as to how you should answer their questions, for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you shall certainly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should say in hono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65:3.8 (1820.7) “How long will you tarry in the valley of decision? Why do you halt between two opinions? Why should Jew or gentile hesitate to accept the good news that he is a son of the eternal God? How long will it take us to persuade you to enter joyfully into your spiritual inheritance? I came into this world to reveal the Father to you and to lead you to the Father. The first I have done, but the last I may not do without your consent; the Father never compels any man to enter the kingdom. The invitation ever has been and always will be: Whosoever will, let him come and freely partake of the water of life.”

165:3.9 (1820.8)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many went forth to be baptized by the apostles in the Jordan while he listened to the questions of those who remained.

4. DIVIDING THE INHERITANCE

165:4.1 (1821.1) As the apostles baptized believers, the Master talked with those who tarried. And a certain young man said to him: “Master, my father died leaving much property to me and my brother, but my brother refuses to give me that which is my own. Will you, then, bid my brother divide this inheritance with me?” Jesus was mildly indignant that this material-minded youth should bring up for discussion such a question of business; but he proceeded to use the occasion for the impartation of further instruction. Said Jesus: “Man, who made me a divider over you? Where did you get the idea that I give attention to the material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n, turning to all who were about him, he said: “Take heed and keep yourselves free from covetousness; a man’s life consists not in

성함에 있지 않다. 행복은 재산의 능력에서 오지 않으며, 기쁨은 부귀에서 생기지 않는다. 재산 자체는 재앙이 아니지만, 부귀를 탐내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의 아름다운 매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일에 매달리도록 인도하기가 아주 쉽다.

“풍성하게 소산을 거두는 땅을 가진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그는 큰 부자가 되자, 스스로 의논하면서 말했다: ‘내가 부자가 됐으니 무엇을 할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내 재산을 쌓아 둘 곳이 부족하구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말했다: ‘옳지, 이렇게 해야겠다. 내 창고들을 허물어버리고 훨씬 큰 것들을 지어서, 곡식과 보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내 혼에게, 혼아 네가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은 재산을 저장해 놓았으니; 이제 네가 편히 쉴 것이며; 네가 부자이고 물자가 더 많이 쌓였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자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부자는 어리석었다. 자기 정신과 육체의 물질적인 소욕은 만족시켜 주면서, 영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때까지 저축한 재산을 써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밤에 그의 혼이 불려갔다. 그 밤에 산적들이 그의 집에 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창고들을 약탈한 후에, 남은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재산 때문에, 그의 상속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보화를 이 땅에 쌓아 뒀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와 그의 상속 문제를 처리했는데, 그 젊은이의 문제가 탐욕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라도 **주님**은 끼어들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의 경우는 커녕 심지어 사도들의 이 세상 문제에도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했다: “**주님**, 제가 알기에, 당신의 사도들은 당신을 따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고, **예세네 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얻은 재산도 죄가 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답했다: “친구여, 명백하게 재산을 갖게 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네가 재물을 단순한 물질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천국을 영적으로 추구하는 헌신으로부터 네 사모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네 관심을 집중시키는 보화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네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면, 이 땅에서 정직한 소유물을 갖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탐욕과 자기중심으로 이끄는 재산,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풍성하게 소유하면

the abundance of the things which he may possess. Happiness comes not from the power of wealth, and joy springs not from riches. Wealth, in itself, is not a curse, but the love of riches many times leads to such devotion to the things of this world that the soul becomes blinded to the beautiful attractions of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of God on earth and to the joys of eternal life in heaven.

165:4.2 (1821.2) “Let me tell you a story of a certain rich man whose ground brought forth plentifully; and when he had become very rich, he began to reason with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with all my riches? I now have so much that I have no place to store my wealth.’ And when he had meditated on his problem, he said: ‘This I will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ones, and thus will I have abundant room in which to store my fruits and my goods. Then can I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uch wealth laid up for many years; take now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for you are rich and increased in goods.’

165:4.3 (1821.3) “But this rich man was also foolish. In providing for the material requirements of his mind and body, he had failed to lay up treasures in heaven for the satisfaction of the spirit and for the salvation of the soul. And even then he was not to enjoy the pleasure of consuming his hoarded wealth, for that very night was his soul required of him. That night there came the brigands who broke into his house to kill him, and after they had plundered his barns, they burned that which remained. And for the property which escaped the robbers his heirs fell to fighting among themselves. This man laid up treasures for himself on earth, but he was not rich toward God.”

165:4.4 (1821.4) Jesus thus dealt with the young man and his inheritance because he knew that his trouble was covetousness. Even if this had not been the case, the Master would not have interfered, for he never meddled with the temporal affairs of even his apostles, much less his disciples.

165:4.5 (1821.5) When Jesus had finished his story, another man rose up and asked him: “Master, I know that your apostles have sold all their earthly possessions to follow you, and that they have all things in common as do the Essenes, but would you have all of us who are your disciples do likewise? Is it a sin to possess honest wealth?” And Jesus replied to this question: “My friend, it is not a sin to have honorable wealth; but it is a sin if you convert the wealth of material possessions into treasures which may absorb your interests and divert your affections from devotion to the spiritual pursuits of the kingdom. There is no sin in having honest possessions on earth provided your treasure is in heaven,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There is a great

서, 천국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기증하는 자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유지하고 처분하는 재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돈 없이 여기 있는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저쪽에 있는 야영장에서 먹이고 채워주는 것은, 재산에 구애받지 않는 남자와 여자들, 너희의 주인인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에 쓰라고 돈을 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은 결국 영구적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라.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종종 어둠에 처하고 심지어 영적 통찰력도 잃어버린다. 재산이 너희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인이 되는 그 위험성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예수께서는 대비하지 않거나, 놀고 지내거나, 가족의 육신적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구호물자에 의존하라고 가르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의 복지에,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영적 본성의 진보에, 부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때, 세례 주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강으로 내려가자, 맨 처음 사람이 자신의 상속에 관해 물어보려고 **예수**께 은밀히 다가왔는데, **예수**께서 자신에게 가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며; 그의 말을 다시 듣고 나서 **주님**이 대답했다: “**애야**, 너는 왜 이런 날에 탐욕스런 생각에 빠져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네가 불만스런 일을 회당의 재판소에 가져가면 상속에 관한 **유대인**의 법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늘의 상속에 관해 네가 알고록 하는 것이 내 일임을 모르겠느냐? **성서**에서, ‘꼭 틀어쥐고 아주 인색하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렇다: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내 재산으로 계속 잘 먹을 수 있으리라고 그가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 닥쳐올지 여전히 모르며,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도 모른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기쁨 바른 후에 다른 신들에게 돌아섰다’는 계명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에서, ‘**주**께서는 탐욕을 멸시하신다’는 것과 ‘의로운 자의 적은 재물이 사악한 자의 많은 재물보다 낫다’ ‘부유함이 증가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읽어봤느냐? **예레미야**가, ‘부자로 하여금 자기 부유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기록한 것과, **에스겔**이 진리를 말하기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마음은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한 부분을 읽어봤느냐?”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를 보내면서 말씀했다: “**애야**, 네가 온 세상을 얻고 네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difference between wealth which leads to covetousness and selfishness and that which is held and dispensed in the spirit of stewardship by those who have an abundance of this world's goods, and who so bountifully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those who devote all their energi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Many of you who are here and without money are fed and lodged in yonder tented city because liberal men and women of means have given funds to your host, David Zebedee, for such purposes.

165:4.6 (1822.1) “But never forget that, after all, wealth is unenduring. The love of riches all too often obscures and even destroys the spiritual vision. Fail not to recognize the danger of wealth's becoming, not your servant, but your master.”

165:4.7 (1822.2) Jesus did not teach nor countenance improvidence, idleness, indifference to providing the physical necessities for one's family, or dependence upon alms. But he did teach that the material and temporal must be subordinated to the welfare of the soul and the progress of the spiritual nature in the kingdom of heaven.

165:4.8 (1822.3) Then, as the people went down by the river to witness the baptizing, the first man came privately to Jesus about his inheritance inasmuch as he thought Jesus had dealt harshly with him; and when the Master had again heard him, he replied: “My son, why do you miss the opportunity to feed upon the bread of life on a day like this in order to indulge your covetous disposition? Do you not know that the Jewish laws of inheritance will be justly administered if you will go with your complaint to the court of the synagogue? Can you not see that my work has to do with making sure that you know about your heavenly inheritance? Have you not read the Scripture: ‘There is he who waxes rich by his wariness and much pinching, and this is the portion of his reward: Whereas he says, I have found rest and now shall be able to eat continually of my goods, yet he knows not what time shall bring upon him, and also that he must leave all these things to others when he dies.’ Have you not read the commandment: ‘You shall not covet.’ And again, ‘They have eaten and filled themselves and waxed fat, and then did they turn to other gods.’ Have you read in the Psalms that ‘the Lord abhors the covetous,’ and that ‘the little a righteous man has is better than the riches of many wicked.’ ‘If riches increase, set not your heart upon them.’ Have you read where Jeremiah said, ‘Let not the rich man glory in his riches’; and Ezekiel spoke truth when he said, ‘With their mouths they make a show of love, but their hearts are set upon their own selfish gain.’”

165:4.9 (1822.4) Jesus sent the young man away, saying to him, “My son, what shall it profit you if you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your own soul?”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심판 날에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께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나는 부자나 가난한자를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이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 때에 재산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면이 고려될지 모르지만, 큰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이렇다:

“1.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느냐?

“2. 이 재산을 어떻게 얻었느냐?

“3.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저녁 식사 때까지 잠시 쉬기 위해 자기 천막으로 갔다. 사도들이 세례 주기를 끝내자, 그들도 와서 땅에서의 재산과 하늘에서의 보화에 대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미 주무시고 있었다.

5. 재산에 관해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그날 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예수**와 열두 사도가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중에, **안드레**가 물었다.“**주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한 많은 말씀을, 머물고 있는 대중에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의 요청에 따라 **예수**께서 말씀했다:

“좋다, **안드레**야, 재산과 자기_유지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겠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천국 대사로써 임명받았으므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대중에게 말했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너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체험했고, 너희가 전파하는 천국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안다. 너희는 천국 사역에 너희 인생을 바쳤으며;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또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하는, 세속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혼의 복지가 음식보다 중요하며;영의 진보가 의복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양식이 염려될 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그것들은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게다가,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조바심하며 의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물질적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우거나, 네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문제들은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은데, 너희는 왜 이 문제들로 염려하느냐?

165:4.10 (1822.5) To another standing near by who asked Jesus how the wealthy would stand in the day of judgment, he replied: “I have come to judge neither the rich nor the poor, but the lives men live will sit in judgment on all. Whatever else may concern the wealthy in the judgment, at least three questions must be answered by all who acquire great wealth, and these questions are:

165:4.11 (1822.6) “1. How much wealth did you accumulate?

165:4.12 (1822.7) “2. How did you get this wealth?

165:4.13 (1822.8) “3. How did you use your wealth?”

165:4.14 (1822.9) Then Jesus went into his tent to rest for a while before the evening meal. When the apostles had finished with the baptizing, they came also and would have talked with him about wealth on earth and treasure in heaven, but he was asleep.

5. TALKS TO THE APOSTLES ON WEALTH

165:5.1 (1823.1) That evening after supper, when Jesus and the twelve gathered together for their daily conference, Andrew asked: “Master, while we were baptizing the believers, you spoke many words to the lingering multitude which we did not hear. Would you be willing to repeat these words for our benefit?” And in response to Andrew’s request, Jesus said:

165:5.2 (1823.2) “Yes, Andrew, I will speak to you about these matters of wealth and self-support, but my words to you, the apostles, must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spoken to the disciples and the multitude since you have forsaken everything, not only to follow me, but to be ordained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lready have you had several years’ experience, and you know that the Father whose kingdom you proclaim will not forsake you. You have dedicated your lives to the ministry of the kingdom; therefore be not anxious or worried about the things of the temporal life, what you shall eat, nor yet for your body, what you shall wear. The welfare of the soul is more than food and drink; the progress in the spirit is far above the need of raiment. When you are tempted to doubt the sureness of your bread, consider the ravens; they sow not neither reap, they have no storehouses or barns, and yet the Father provides food for every one of them that seeks it. And of how much more value are you than many birds! Besides, all of your anxiety or fretting doubts can do nothing to supply your material needs. Which of you by anxiety can add a handbreadth to your stature or a day to your life? Since such matters are not in your hands, why do you give anxious thought to any of these problems?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것들은 수고하지 않고 실을 만들지도 않지만;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 살아 있다가 내일에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옷을 입히시는데, 하늘 나라의 대사인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오! 너희 신앙이 적은 자들이! 천국 복음 전파에 너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면, 너희가 포기한 너희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 결코 염려할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삶을 전심으로 복음에 바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직 믿는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함은 물론,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유하는 모든 사람의 생계를 위해 기부해야 한다. 너희가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필요한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세상 나라들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너희 일에 전념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실히 말하는데, 너희 삶을 천국 일에 바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작은 것들은 그 속에서 발견될 것이며;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받을 것이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를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너희는 작은 무리일 뿐이지만, 너희가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내가 단언한다. 돈주머니가 남아가지 않는 곳, 도둑이 약탈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는 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 뒀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바로 있을 일과, 내가 **아버지** 계로 간 후에 너희에게 남겨질 일을 하면서, 너희는 중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각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등불을 계속 밝혀라. 결혼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가 문을 두드릴 때, 빨리 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어라.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은, 그와 같은 중대한 순간에 그들의 신실함을 발견한 주인에게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종들을 앉혀 놓고 그들에게 시중들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일생의 위기가 바로 눈 앞에 닥쳤으니, 조심하고 준비돼야 한다.

“어느 때에 도둑이 들어올지 알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열두 사도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경

165:5.3 (1823.3)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toil not, neither do they spin; yet I say to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cut down and cast into the fire, how much more shall he clothe you,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O you of little faith! When you wholeheartedly devote yourselves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should not be of doubtful minds concerning the support of yourselves or the families you have forsaken. If you give your lives truly to the gospel, you shall live by the gospel. If you are only believing disciples, you must earn your own bread and contribute to the sustenance of all who teach and preach and heal. If you are anxious about your bread and water, wherein are you different from the nations of the world who so diligently seek such necessities? Devote yourselves to your work, believing that both the Father and I know that you have need of all these things. Let me assure you, once and for all, that, if you dedicate your liv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all your real needs shall be supplied. Seek the greater thing, and the lesser will be found therein; ask for the heavenly, and the earthly shall be included. The shadow is certain to follow the substance.

165:5.4 (1823.4) “You are only a small group, but if you have faith, if you will not stumble in fear, I declare that it is my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is kingdom. You have laid up your treasures where the purse waxes not old, where no thief can despoil, and where no moth can destroy. And as I told the people,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165:5.5 (1824.1) “But in the work which is just ahead of us, and in that which remains for you after I go to the Father, you will be grievously tried. You must all be on your watch against fear and doubts. Every one of you,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s and let your lamps be kept burning. Keep yourselves like men who are watch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the marriage feas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you may quickly open to him. Such watchful servants are blessed by the master who finds them faithful at such a great moment. Then will the master make his servants sit down while he himself serves them.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at a crisis is just ahead in your lives, and it behooves you to watch and be ready.

165:5.6 (1824.2) “You well understand that no man would suffer his house to be broken into if he knew what hour the thief was to come. Be you also on watch for yourselves, for in an hour that you least suspect and in a manner you think not, shall the Son of Man depart.”

165:5.7 (1824.3) For some minutes the twelve sat in

고 가운데 더리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이번처럼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었다.

silence. Some of these warnings they had heard before but not in the setting presented to them at this time.

6.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 하심

그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이 비유를 당신의 사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험이 있을 때, 사람의 혼이 드러날 것이며; 마음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시련이 드러낼 것이다. 종이 시험받고 충실함이 입증되면, 집 주인은 식솔들을 감독하도록 그런 종을 세우고, 이 신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도록 일을 처리할 것을, 안심하고 신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 자녀의 복지를 위해 누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집 주인이, 참되고 믿을만한 종에게 자기 가족의 문제를 맡기듯이, 나도 내 나라의 문제로 시험이 다가올 때 잘 견디는 자들을 높이 세울 것이다.

“그러나 종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마음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늦추신다’고 하면서, 부하 종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면,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의 충실치 못함을 발견하고, 그를 가차 없이 쫓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닥쳐올 그날을 위해 스스로 잘 준비하도록 해라. 너희에게 많이 맡겨진 만큼; 너희로부터 많이 요구될 것임을 꼭 기억해라. 격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임박했다. 받아야 할 세례가 내게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전파하지만, 내 사명은 사람의 물질 문제에 --적어도 당분간은-- 평화를 주려함이 아니다.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세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분열만 있을 뿐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해, 친구, 친척, 및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각자 마음 속에 크고 영원한 평화를 갖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영광스런 유산을 기꺼이 믿고 그리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뤄질 것이다. 그럼에도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나라, 모든 어른과 아이들에게 전파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쁜 **안식일**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 **예수**와 열두 사도는 북부 **베레아**의 여러 도시로 들어갔는데, **아브넬**의 감독 하에 이 지역에서 일하는 70인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6. ANSWER TO PETER'S QUESTION

165:6.1 (1824.4) As they sat thinking, Simon Peter asked: “Do you speak this parable to us, your apostles, or is it for all the disciples?” And Jesus answered:

165:6.2 (1824.5) “In the time of testing, a man's soul is revealed; trial discloses what really is in the heart. When the servant is tested and proved, then may the lord of the house set such a servant over his household and safely trust this faithful steward to see that his children are fed and nurtured. Likewise, will I soon know who can be trusted with the welfare of my children when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s the lord of the household shall set the true and tried servant over the affairs of his family, so will I exalt those who endure the trials of this hour in the affairs of my kingdom.

165:6.3 (1824.6) “But if the servant is slothful and begins to say in his heart, ‘My master delays his coming,’ and begins to mistreat his fellow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with the drunken, then the lord of that servant will come at a time when he looks not for him and, finding him unfaithful, will cast him out in disgrace. Therefore you do well to prepare yourselves for that day when you will be visited suddenly and in an unexpected manner. Remember, much has been given to you; therefore will much be required of you. Fiery trials are drawing near you.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I am on watch until this is accomplished. You preach peace on earth, but my mission will not bring peace in the material affairs of men — not for a time, at least. Division can only be the result where two members of a family believe in me and three members reject this gospel. Friends, relatives, and loved ones are destined to be set against each other by the gospel you preach. True, each of these believers shall have great and lasting peace in his own heart, but peace on earth will not come until all are willing to believe and enter into their glorious inheritance of sonship with God. Nevertheless, go in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to all nations,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165:6.4 (1824.7) And this was the end of a full and busy Sabbath day. On the morrow Jesus and the twelve went into the cities of northern Perea to visit with the seventy, who were working in these regions under Abner's supervision.

제166편. 마지막 북 베레아 방문

⇨ 165

유랜시아 책

167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66편
마지막 북 베레아 방문

섹션

소개

1. 라가바의 바리새인
2. 열 명의 나병환자
3. 거라사에서 한 설교
4.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5. 필라델피아의 집회

소개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는 **아브넬**의 동역자들과 여자 단체 대원들이 사역하는 북 **베레아**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러쌌다. 그들은 이 복음 사자(使者)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베레아에서 세 달 동안의 이 전체 사역은, 열두 사도가 거의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이때부터 복음은 **예수**의 교훈만큼, 그렇게 그의 인간성에 대해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종자들이 그의 지시를 오래 따르지는 못했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곧 그의 교훈을 떠났으며, 신이자 인간인 그의 인격에 대한 초자연적 개념과 영광으로 채색된 기억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라가바의 바리새인

2월 18일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부자 **바리새인**이 사는 **라가바**에 갔으

PAPER 166

LAST VISIT TO NORTHERN PERE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harisees at Ragaba
2. The Ten Lepers
3. The Sermon at Gerasa
4. Teaching about Accidents
5. The Congregation at Philadelphia

INTRODUCTION

166:0.1 (1825.1) FROM February 11 to 20, Jesus and the twelve made a tour of all the cities and villages of northern Perea where the associates of Abner and the members of the women's corps were working. They found these messengers of the gospel meeting with success, and Jesus repeatedly called the attention of his apostles to the fact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could spread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miracles and wonders.

166:0.2 (1825.2) This entire mission of three months in Perea was successfully carried on with little help from the twelve apostles, and the gospel from this time on reflected, not so much Jesus' personality, as his *teachings*. But his followers did not long follow his instructions, for soon after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departed from his teachings and began to build the early church around the miraculous concepts and the glorified memories of his divine-human personality.

1. THE PHARISEES AT RAGABA

166:1.1 (1825.3) On Sabbath, February 18, Jesus was at Ragaba, where there lived a wealthy Pharisee

며;그 지방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동료 **바리새인**이 **예수**와 열두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20 명쯤 되는 그들 모두를 위해 **안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주빈{主賓}으로 초대했다.

예수께서 이 아침 식사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을 때, 두 세 명의 율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이미 와서 상에 앉아 있었다. **주님**은 물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가서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나다니엘**의 왼쪽에 앉았다. 많은 **바리새인**, 특히 **예수**의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과, 순전히 예식적인 이런 동작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손을 두 번 씻지 않고 직접 식탁으로 간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바리새인**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풍습을 **주님**이 지키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데, **예수**께서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그의 오른 쪽에 앉은 비우호적인 **바리새인** 사이에 상당한 껍속말이 오간 후에, 그리고 **주님**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눈썹을 크게 치켜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냉소한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가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선포함에 대해 내게 물으려고 나를 초대한 것으로 나는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너희는 독선적으로 격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나를 이곳에 데려왔구나. 너희가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라면; 다음에는 이런 자리의 손님으로서 내게 무엇으로 예우하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식탁만 바라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이 자리에 함께 있는 너희 **바리새인** 중에는 내 친구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복음이 자기 앞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그토록 깨끗하게 닦지만, 영적 음식을 담는 그릇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너희는 사람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너희 속에는, 독선, 탐욕, 강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영적 사악함이 들어 있다. 너희 지도자들은 감히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계획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겉치레 허식와 경건한 고백뿐 아니라 혼의 내적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구제 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내는 것이, 너희의 불의를 씻어준 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때 너희를 제외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명의 빛을 계속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에게 화있을지이다! 너희가 십일조는 정확하게 내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삼아 드러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

named Nathaniel; and since quite a number of his fellow Pharisees were following Jesus and the twelve around the country, he made a breakfast on this Sabbath morning for all of them, about twenty in number, and invited Jesus as the guest of honor.

166:1.2 (1825.4) By the time Jesus arrived at this breakfast, most of the Pharisees, with two or three lawyers, were already there and seated at the table. The Master immediately took his seat at the left of Nathaniel without going to the water basins to wash his hands. Many of the Pharisees, especially those favorable to Jesus' teachings, knew that he washed his hands only for purposes of cleanliness, that he abhorred these purely ceremonial performances; so they were not surprised at his coming directly to the table without having twice washed his hands. But Nathaniel was shocked by this failure of the Master to comply with the strict requirements of Pharisaic practice. Neither did Jesus wash his hands, as did the Pharisees, after each course of food nor at the end of the meal.

166:1.3 (1825.5) After considerable whispering between Nathaniel and an unfriendly Pharisee on his right and after much lifting of eyebrows and sneering curling of lips by those who sat opposite the Master, Jesus finally said: "I had thought that you invited me to this house to break bread with you and perchance to inquire of me concerning the proclamation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but I perceive that you have brought me here to witness an exhibition of ceremonial devotion to your own self-righteousness. That service you have now done me; what next will you honor me with as your guest on this occasion?"

166:1.4 (1826.1) When the Master had thus spoken, they cast their eyes upon the table and remained silent. And since no one spoke, Jesus continued: "Many of you Pharisees are here with me as friends, some are even my disciples, but the majority of the Pharisees are persistent in their refusal to see the light and acknowledge the truth, even when the work of the gospel is brought before them in great power. How carefully you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s and the platters while the spiritual-food vessels are filthy and polluted! You make sure to present a pious and holy appearance to the people, but your inner souls are filled with self-righteousness, covetousness, extortion, and all manner of spiritual wickedness. Your leaders even dare to plot and plan the murder of the Son of Man. Do not you foolish men understand that the God of heaven looks at the inner motives of the soul as well as on your outer pretenses and your pious professions? Think not that the giving of alms and the paying of tithes will cleanse you from unrighteousness and enable you to stand clean in the presence of the Judge of all men. Woe upon you Pharisees who

는 것을 고의로 거절하고, 그의 사랑의 계시를 거부한다. 너희가 비록 이런 사소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을지라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거절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 화있을지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장터에 서서 아첨하는 인사 받기는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경멸하는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떠나려는 듯이 일어나자, 식탁에 앉아 있던 율법사 한 사람이 그를 부르면서 말했다: "하지만 **주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서서 대답했다: "너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잔치 때에는 긴 옷을 입고 상석(上席)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이 이 무거운 짐 밑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도, 너는 손가락 하나로도 거들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 만들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너희에게 화있을지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했던 것--곧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이 시대에 나타나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의 조상이 범했던 것에 너희도 동조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는, 뒤떨어지고 독선적인 이 세대를 위해 필요했다. 서민으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뺏어버린 너희 율법사에게 화있을지어다! 너희 자신이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려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 나라의 문들을 닫을 수 없으며; 들어갈 만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문들을 열어놔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종류의 영적 불결함으로 가득한 가짜 선생과 거짓 목자들은, 이 자비의 문들을 닫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자, 식사를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은 흑암 속의 길을 계속 고집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앞으로 그를 데려가서 시험하고 심판하기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그에게서 책잡을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기로 결정하게 됐다.

바리새인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이 꼭 세 가지 있었다:

have persisted in rejecting the light of life! You are meticulous in tithing and ostentatious in almsgiving, but you knowingly spurn the visitation of God and reject the revelation of his love. Though it is all right for you to give attention to these minor duties, you should not have left these weightier requirements undone. Woe upon all who shun justice, spurn mercy, and reject truth! Woe upon all those who despise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le they seek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 and crave flattering salutations in the market places!"

166:1.5 (1826.2) When Jesus would have risen to depart, one of the lawyers who was at the table, addressing him, said: "But, Master, in some of your statements you reproach us also. Is there nothing good in the scribes, the Pharisees, or the lawyers?" And Jesus, standing, replied to the lawyer: "You, like the Pharisees, delight in the first places at the feasts and in wearing long robes while you put heavy burdens, grievous to be borne, on men's shoulders. And when the souls of men stagger under these heavy burdens, you will not so much as lift with one of your fingers. Woe upon you who take your greatest delight in building tombs for the prophets your fathers killed! And that you consent to what your fathers did is made manifest when you now plan to kill those who come in this day doing what the prophets did in their day — proclaiming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revealing the mercy of the heavenly Father. But of all the generations that are pas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shall be required of this perverse and self-righteous generation. Woe upon all of you lawyers who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from the common people! You yourselves refuse to enter into the way of truth, and at the same time you would hinder all others who seek to enter therein. But you cannot thus shut up the door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se we have opened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enter, and these portals of mercy shall not be closed by the prejudice and arrogance of false teachers and untrue shepherds who are like whited sepulchres which, while outwardly they appear beautiful, are inwardly full of dead men's bones and all manner of spiritual uncleanness."

166:1.6 (1826.3)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t Nathaniel's table, he went out of the house without partaking of food. And of the Pharisees who heard these words, some became believers in his teaching and entered into the kingdom, but the larger number persisted in the way of darkness, becoming all the more determined to lie in wait for him that they might catch some of his words which could be used to bring him to trial and judgment before the Sanhedrin at Jerusalem.

166:1.7 (1827.1) There were just three things to which the Pharisees paid particular attention:

1. 철저한 십일조 생활.
2. 정결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함.
3. **바리새인**이 아닌 모든 사람과 교제하기를 피함.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처음 두 가지 사항이 영적으로 비생산적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 반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리새인**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려 계획했던 것은, 이다음에 이 동일한 무리 가운데 여러 사람과 다시 식사할 때 하려고 뒤로 미뤘다.

2. 열 명의 나병환자

이튿날,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함께 **사마리아** 접경에 있는 **아마수스**로 갔으며, 도시에 가까워질 때, 이곳 근처에 머무는 열 명의 나병환자 무리를 만나게 됐다. 이들 가운데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평상시에는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거나 연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종교적 선입관이 무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많이 알았고, 전에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았으며, 70인이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알려졌으므로, **주님**이 열두 사도와 이곳에 왔을 때, 열 명의 나병환자는 이 무렵에 이 장소 근처로 그가 지나갈 것을 미리 알았으며; 그리하여 그의 관심을 살만한 도시 외곽의 이곳으로 나와서, 치유를 간청하려고 기다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열 명의 나병환자는,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방금 열두 사도에게, 더 보수적이고 전통에 얽매인 **유대지방**의 **유대인**보다, **베레아** 지방의 이방인과 덜 보수적인 **유대인**이, 70인이 전파한 복음을 왜 더 기꺼이 믿는지 설명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갈릴리인**,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열두 사도는, 오랫동안 멀리해온 **사마리아인**에게 아직도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열심당 시몬**은, 나병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보고, **주님**이 그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지나가게 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 동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아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더 감사

166:1.8 (1827.2) 1. The practice of strict tithing.

166:1.9 (1827.3) 2. Scrupulous observance of the laws of purification.

166:1.10 (1827.4) 3. Avoidance of association with all non-Pharisees.

166:1.11 (1827.5) At this time Jesus sought to expose the spiritual barrenness of the first two practices, while he reserved his remarks designed to rebuke the Pharisees' refusal to engage in social intercourse with non-Pharisees for another and subsequent occasion when he would again be dining with many of these same men.

2. THE TEN LEPERS

166:2.1 (1827.6) The next day Jesus went with the twelve over to Amathus, near the border of Samaria, and as they approached the city, they encountered a group of ten lepers who sojourned near this place. Nine of this group were Jews, one a Samaritan. Ordinarily these Jews would have refrained from all association or contact with this Samaritan, but their common affliction was more than enough to overcome all religious prejudice. They had heard much of Jesus and his earlier miracles of healing, and since the seventy made a practice of announcing the time of Jesus' expected arrival when the Master was out with the twelve on these tours, the ten lepers had been made aware that he was expected to appear in this vicinity at about this time; and they were, accordingly, posted here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here they hoped to attract his attention and ask for healing. When the lepers saw Jesus drawing near them, not daring to approach him, they stood afar off and cried to him: “Master, have mercy on us; cleanse us from our affliction. Heal us as you have healed others.”

166:2.2 (1827.7) Jesus had just been explaining to the twelve why the gentiles of Perea, together with the less orthodox Jews, were more willing to believe the gospel preached by the seventy than were the more orthodox and tradition-bound Jews of Judea. He had called thei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ir message had likewise been more readily received by the Galileans, and even by the Samaritans. But the twelve apostles were hardly yet willing to entertain kind feelings for the long-despised Samaritans.

166:2.3 (1827.8) Accordingly, when Simon Zelotes observed the Samaritan among the lepers, he sought to induce the Master to pass on into the city without even hesitating to exchange greetings with them. Said Jesus to Simon: “But what if the Samaritan loves God as well as the Jews? Should we sit in judgment on our fellow men? Who can tell? if we make these ten men whole, perhaps the

를 표시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네 의견이 확실하다고 느끼느냐?” 그리고 **시몬**이 곧 대답했다: “저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곧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몬**아, 그렇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애정 깊은 자비에 관한 진실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나병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거든,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됐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유 받고 있음을 보고, 돌아와 **예수**를 찾으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님**을 발견한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해 감사드렸다. 아홉 명의 다른 사람, 즉 **유대인**도 자신이 치유 받았음을 발견했고, 그들 역시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해 감사했지만,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 가던 길을 재촉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은 열두 사도, 특히 **열심당 시몬**을 바라보면서 말씀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홉 명의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위해 돌아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서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했다.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바라봤다. 다른 사도는 모두 **예수**를 쳐다봤지만, **열심당 시몬**은 땅만 바라봤다. 열두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없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열 사람 모두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만 그 병에 걸렸다. 다른 여섯 명은 나병이라고 오인한 피부병을 치료받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열두 사도에게 명하고, **아마수스**에 들어갈 즈음에 이렇게 주의를 줬다: “본 집 자녀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치 않을 때에도,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치유하셨을 때 감사드리기를 무시한 그들은,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손님들은 그 집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경이로움으로 가득했고, 자신들에게 선한 일이 주어졌음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3. 거라사에서 한 설교

예수와 열두 사도가 천국 사자들과 함께 **거라사**를 방문하자, 그를 믿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

Samaritan will prove more grateful even than the Jews. Do you feel certain about your opinions, Simon?” And Simon quickly replied, “If you cleanse them, you will soon find out.” And Jesus replied: “So shall it be, Simon, and you will soon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gratitude of men and the loving mercy of God.”

166:2.4 (1827.9) Jesus, going near the lepers, said: “If you would be made whole, go forthwith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s required by the law of Moses.” And as they went, they were made whole. But when the Samaritan saw that he was being healed, he turned back and, going in quest of Jesus, began to glorify God with a loud voice. And when he had found the Master, he fell on his knees at his feet and gave thanks for his cleansing. The nine others, the Jews, had also discovered their healing, and while they also were grateful for their cleansing, they continued on their way to show themselves to the priests.

166:2.5 (1828.1) As the Samaritan remained kneeling at Jesus’ feet, the Master, looking about at the twelve, especially at Simon Zelotes, sai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then, are the other nine, the Jews? Only one, this alien, has returned to give glory to God.” And then he said to the Samaritan, “A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166:2.6 (1828.2) Jesus looked again at his apostles as the stranger departed. And the apostles all looked at Jesus, save Simon Zelotes, whose eyes were downcast. The twelve said not a word. Neither did Jesus speak; it was not necessary that he should.

166:2.7 (1828.3) Though all ten of these men really believed they had leprosy, only four were thus afflicted. The other six were cured of a skin disease which had been mistaken for leprosy. But the Samaritan really had leprosy.

166:2.8 (1828.4) Jesus enjoined the twelve to say nothing about the cleansing of the lepers, and as they went on into Amathus, he remarked: “You see how it is that the children of the house, even when they are insubordinate to their Father’s will, take their blessings for granted. They think it a small matter if they neglect to give thanks when the Father bestows healing upon them, but the strangers, when they receive gifts from the head of the house, are filled with wonder and are constrained to give thanks in recognition of the good things bestowed upon them.” And still the apostles said nothing in reply to the Master’s words.

3. THE SERMON AT GERASA

166:3.1 (1828.5) As Jesus and the twelve visited with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at Gerasa, one of

가 질문했다: “주여, 참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희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배워왔으며; 이방인 중에서는 오직 양자 된 자들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배워왔다. 너희 중에 더러는 그 이유로, **성서**에 기록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 무리 가운데 오직 **예슈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늘 나라를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 그 입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너희 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다른 속담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만 이 문을 통해서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도 너희가 안다. 이 속담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을지라도, 내가 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어가기로 구하는 모든 자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 그리고 **아들**은, 신앙을 갖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고자하는 자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상태에 머물기를 즐기고 자기 만족을 탐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미루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 체험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절했으므로, 나중에 더 영광스런 길이 드러나면, 그때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왔을 때 천국을 거절했던 자들이, 입구가 신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런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도 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미 이 하늘 시민이 될 기회를 가졌었지만, 주어진 그런 모든 자비를 거부했으며; 문이 열려있을 때 오라고 여러 번 초대했지만, 너희는 다 거절했다. 이제는, 구원을 거부한 너희에게는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이기적인 영광을 위해 천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 데 필요한 대가{代價}를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광 혹은 **아버지**의 나라에 등을 돌리면서, 몸과 정신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없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내 양 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땅에 있는 천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대가로 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너희가 말할 때, 너희는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동역자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the Pharisees who believed in him asked this question: “Lord, will there be few or many really saved?” And Jesus, answering, said:

166:3.2 (1828.6) “You have been taught that only the children of Abraham will be saved; that only the gentiles of adoption can hope for salvation. Some of you have reasoned that, since the Scriptures record that only Caleb and Joshua from among all the hosts that went out of Egypt liv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only a comparatively few of those who seek the kingdom of heaven shall find entrance thereto.

166:3.3 (1828.7) “You also have another saying among you, and one that contains much truth: That the way which leads to eternal life is straight and narrow, that the door which leads thereto is likewise narrow so that, of those who seek salvation, few can find entrance through this door. You also have a teaching that the way which leads to destruction is broad, that the entrance thereto is wide, and that there are many who choose to go this way. And this proverb is not without its meaning. But I declare that salvation is first a matter of your personal choosing. Even if the door to the way of life is narrow, it is wide enough to admit all who sincerely seek to enter, for I am that door. And the Son will never refuse entrance to any child of the universe who, by faith, seeks to find the Father through the Son.

166:3.4 (1829.1) “But herein is the danger to all who would postpone their entrance into the kingdom while they continue to pursue the pleasures of immaturity and indulge the satisfactions of selfishness: Having refused to enter the kingdom as a spiritual experience, they may subsequently seek entrance thereto when the glory of the better way becomes revealed in the age to come. And when, therefore, those who spurned the kingdom when I came in the likeness of humanity seek to find an entrance when it is revealed in the likeness of divinity, then will I say to all such selfish ones: I know not whence you are. You had your chance to prepare for this heavenly citizenship, but you refused all such proffers of mercy; you rejected all invitations to come while the door was open. Now, to you who have refused salvation, the door is shut. This door is not open to thos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for selfish glory. Salvation is not for those who are unwilling to pay the price of wholehearted dedication to doing my Father’s will. When in spirit and soul you have turned your backs upon the Father’s kingdom, it is useless in mind and body to stand before this door and knock, saying, ‘Lord, open to us; we would also be great in the kingdom.’ Then will I declare that you are not of my fold. I will not receive you to be among those who have fought the good fight of faith and won the reward of unselfish service in the kingdom on earth. And when you say, ‘Did we not eat and drink with you, and did you not teach in our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하겠으며; 그때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관이 너희에게, '죄악의 소행을 즐겼던 너희는 모두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영구적인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는, 영화로운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의 신자와 함께 앉아서 생명의 빵을 나누고, 그곳의 물로 생기를 얻게 됨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돌격해서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물려줄 것이다.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고 좁은 길이라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의 정말로 새롭고 생소한 개정판(改訂版)이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는, **예수**께서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기에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낙원 아버지**를 찾는, 길고도 결실이 풍성한 봉사에서 영원히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묻이고, 내가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끝없는 진리_탐구를 착수하게 될 것이다”는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의 지극히_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현재의 모든 방해물을 극복할 목적으로, 모든 물질적 방해물을 헤쳐 나갈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로서, 이렇게 영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다.

4.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팔레스틴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두 끼의 식사만 했지만, **예수**와 사도들은 여행 할 때 휴식과 식사를 위해 정오에 쉬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서 그런 정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췄을 때, **도마**가 **예수**께 질문했다.

streets?’ then shall I again declare that you are spiritual strangers; that we were not fellow servants in the Father’s ministry of mercy on earth; that I do not know you; and then shall the Judge of all the earth say to you: ‘Depart from us, all you who have taken delight in the works of iniquity.’

166:3.5 (1829.2) “But fear not; every one who sincerely desires to find eternal life by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God shall certainly find such everlasting salvation. But you who refuse this salvation will some day see the prophets of the seed of Abraham sit down with the believers of the gentile nations in this glorified kingdom to partake of the bread of life and to refresh themselves with the water thereof. And they who shall thus take the kingdom in spiritual power and by the persistent assaults of living faith will come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and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behold,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ose who are last will many times be first.”

166:3.6 (1829.3) This was indeed a new and strange version of the old and familiar proverb of the straight and narrow way.

166:3.7 (1829.4) Slowly the apostles and many of the disciples were learning the meaning of Jesus’ early declaration: “Unless you are born again, born of the spirit,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Nevertheless, to all who are honest of heart and sincere in faith, it remains eternally true: “Behold, I stand at the doors of men’s hearts and knock, and if any man will open to me, I will come in and sup with him and will feed him with the bread of life; we shall be one in spirit and purpose, and so shall we ever be brethren in the long and fruitful service of the search for the Paradise Father.” And so, whether few or many are to be saved altogether depends on whether few or many will heed the invitation: “I am the door, I am the new and living way, and whosoever wills may enter to embark upon the endless truth-search for eternal life.”

166:3.8 (1829.5) Even the apostles were unable fully to comprehend his teaching as to the necessity for using spiritual force for the purpose of breaking through all material resistance and for surmounting every earthly obstacle which might chance to stand in the way of grasping the all-important spiritual values of the new life in the spirit as the liberated sons of God.

4. TEACHING ABOUT ACCIDENTS

166:4.1 (1830.1) While most Palestinians ate only two meals a day, it was the custom of Jesus and the apostles, when on a journey, to pause at midday for rest and refreshment. And it was at such a noontide stop on the way to Philadelphia that Thomas asked Jesus: “Master, from hearing your

“주님, 오늘 아침에 오던 길에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에 영적 존재들이 관여하는지 묻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우연한 사고를 천사 및 다른 영적 존재들이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너희와 똑같이 살면서, 자신의 개인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세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철저히 거부하는지, 네가 관찰하지 못했느냐? 다른 모든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도 모두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괴로워하는 자녀를 언제나 치유했던 것 외에, 이 세상의 물질생활에서 명백히 나타난 영적 세계의 능력을 네가 보느냐?

“너희 조상은 모두, 번영이 신에게서 인정받은 징후이며; 불운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증거라고,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선언하겠는데, 그런 믿음은 미신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부유함이 신의 은혜라면, 부자들이 하늘에서 온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는 바른 자나 바르지 못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며; 마찬가지로 햇빛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추신다. **빌라도**가 그 **갈릴리인**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함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갈릴리인**이 모든 동료들보다 더 죄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 땅대를 깎다가 열여덟 명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모든 형제보다 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무리는 단순히 시간세계의 우연한 사고들 가운데 하나의 무고한 희생자였을 뿐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1. 너와 동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애의 한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건에, 네가 함께 할 수 있다.

“ 2.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고,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 가운데 하나에, 네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어떤 면에서도 미리 정해지거나, 달리 이 땅의 영적 세력들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 3. 너희는 직접 수고한 것들의 결과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거둬들일 것이다.

“자기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번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자, 농부들을 앞에 불러서 말했다: ‘이 무

remarks as we journeyed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inquire whether spiritual beings are concerned in the production of strange and extraordinary events in the material world and, further, to ask whether the angels and other spirit beings are able to prevent accidents.”

166:4.2 (1830.2) In answer to Thomas's inquiry,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continue to ask me such questions? Have you failed to observe how the Son of Man lives as one with you and consistently refuses to employ the forces of heaven for his personal sustenance? Do we not all live by the same means whereby all men exist? Do you see the power of the spiritual world manifested in the material life of this world, save for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metime healing of his afflicted children?

166:4.3 (1830.3) “All too long have your fathers believed that prosperity was the token of divine approval; that adversity was the proof of God's displeasure. I declare that such beliefs are superstitions. Do you not observe that far greater numbers of the poor joyfully receive the gospel and immediately enter the kingdom? If riches evidence divine favor, why do the rich so many times refuse to believe this good news from heaven?

166:4.4 (1830.4) “The Father causes his rain to fall on the just and the unjust; the sun likewise shines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You know about thos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mingled with the sacrifices, but I tell you these Galileans were not in any manner sinners above all their fellows just because this happened to them. You also know about the eighteen men upon whom the tower of Siloam fell, killing them. Think not that these men who were thus destroyed were offenders above all their brethren in Jerusalem. These folks were simply innocent victims of one of the accidents of time.

166:4.5 (1830.5) “There are three groups of events which may occur in your lives:

166:4.6 (1830.6) “1. You may share in those normal happenings which are a part of the life you and your fellows live on the face of the earth.

166:4.7 (1830.7) “2. You may chance to fall victim to one of the accidents of nature, one of the mischances of men, knowing full well that such occurrences are in no way prearranged or otherwise produced by the spiritual forces of the realm.

166:4.8 (1830.8) “3. You may reap the harvest of your direct efforts to comply with the natural laws governing the world.

166:4.9 (1830.9) “There was a certain man who planted a fig tree in his yard, and when he had many times sought fruit thereon and found none, he called the vinedressers before him and said:

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세 번이나 왔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러나 우두머리 농부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일 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해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들이 풍작을 가져오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무는 잘 살고 상태가 좋았으므로, 많은 수확으로 보상받았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서, 육체의 상태는 물질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며; 건강이 하늘의 은총이 아니듯이, 고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아버지**의 인간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복 받을 자격을 똑같이 가졌으며;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을 차별 없이 주셨다. 영적 은사{恩賜}를 줄 때에는, **아버지**께서도 이 신성한 재능을 받을 사람의 수용력으로 인해 제한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실 지라도, 영적 은사를 수여할 때에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 뜻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자발적인가에 따라 제한 받으신다.”

그들이 **필라델피아**를 향해 여행할 때, **예수**께서는, 사고, 질병, 및 기적과 관련되는 그들의 질문에 계속 대답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일생토록 믿어오던 것을, 한 시간 동안의 가르침으로 전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해시키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도,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5. 필라델피아의 집회

예수와 열두 사도는, **필라델피아**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베레아**에 있는 모든 도시에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큰 무리가 70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므로, **예수**와 동역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때,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 가르치고 있었다.

바로 이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됐고, 그 지역을 통해서 동쪽 지방으로 복음을 공급하는 선교 본부가 됐다. 이곳은 오랫동안 **주님**의 교훈의 근거지 역할을 했고,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유력한 교육 중심지였다.

‘Here have I come these three seasons looking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 found none. Cut down this barren tree; why should it encumber the ground?’ But the head gardener answered his master: ‘Let it alone for one more year so that I may dig around it and put on fertilizer, and then, next year, if it bears no fruit, it shall be cut down.’ And when they had thus complied with the laws of fruitfulness, since the tree was living and good, they were rewarded with an abundant yield.

166:4.10 (1831.1) “In the matter of sickness and health, you should know that these bodily states are the result of material causes; health is not the smile of heaven, neither is affliction the frown of God.

166:4.11 (1831.2) “The Father’s human children have equal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material blessings; therefore does he bestow things physical upon the children of men without discrimination. When it comes to the bestowal of spiritual gifts, the Father is limited by man’s capacity for receiving these divine endowments. Although the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in the bestowal of spiritual gifts he is limited by man’s faith and by his willingness always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166:4.12 (1831.3) As they journeyed on toward Philadelphia, Jesus continued to teach them and to answer their questions having to do with accidents, sickness, and miracles, but they were not able fully to comprehend this instruction. One hour of teaching will not wholly change the beliefs of a lifetime, and so Jesus found it necessary to reiterate his message, to tell again and again that which he wished them to understand; and even then they failed to grasp the meaning of his earth mission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5. THE CONGREGATION AT PHILADELPHIA

166:5.1 (1831.4) Jesus and the twelve were on their way to visit Abner and his associates, who were preaching and teaching in Philadelphia. Of all the cities of Perea, in Philadelphia the largest group of Jews and gentiles, rich and poor, learned and unlearned, embraced the teachings of the seventy, thereby entering into the kingdom of heaven. The synagogue of Philadelphia had never been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Sanhedrin at Jerusalem and therefore had never been closed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his associates. At this very time, Abner was teaching three times a day in the Philadelphia synagogue.

166:5.2 (1831.5) This very synagogue later on became a Christian church and was the missionary headquarters for the promulgation of the gospel through the regions to the east. It was long a stronghold of the Master’s teachings and stood alone in this region as a center of Christian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필라델피아의 유대인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됐는데, **필라델피아** 신자 회중과 심각하게 반목하기 시작했다.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책임자가 됐으며, 죽을 때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불화함으로 인해, **아브넬**에 대한 기록과 그의 업적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됐다. **예루살렘**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이런 반목은, **야고보**와 **아브넬**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됐고, **예루살렘**이 폐파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안디옥**이 북 서쪽에서 초대 교회 본부였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남동쪽에서 실제적인 본부였다.

아브넬이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지도자와 불화했던 것은 명백한 불행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治理}하고 경영하는 문제에서, **베드로** 및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이가 벌어졌으며; **바울**과는 철학과 신학의 이견{異見}으로 헤어졌다. **아브넬**의 철학은 **헬라**보다 **바벨론** 사상에 더 가까웠으며, **예수**의 교훈을 개조하려는 **바울**의 온갖 시도를 **아브넬**이 완강히 반대했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다음에는 여러 신비교를 믿는 **그리스 로마** 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것을 적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대지 않는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후에 **베드로**의 지지를 받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히 도전했다. 이런 행동은, 전에 같은 동역자였던 모든 사람이 그를 멀리 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에 그는 **바울**에게 도전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서는 **바울**과 전적으로 공감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했을 때 그를 지지했지만, 전파하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예수**의 교훈의 개정판{改訂版}에는 몹시 반대했다. **아브넬**은 말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교훈을 교묘하게 변조시킨 자”라고 **바울**을 비난했다.

아브넬의 말년과 그 후 얼마 동안, **필라델피아** 신자들은 그가 살았던 대로 그리고 가르쳤던 대로, 이 세상의 어떤 무리보다 더 순전하게 **예수**의 종교를 유지했다.

아브넬은 여든아홉 살 되기까지 살았고, 서기 74년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고 또한 가르치는 자였다.

learning for centuries.

166:5.3 (1831.6) The Jews at Jerusalem had always had trouble with the Jews of Philadelphia. And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e Jerusalem church, of which James the Lord's brother was head, began to have serious difficulties with the Philadelphia congregation of believers. Abner became the head of the Philadelphia church, continuing as such until his death. And this estrangement with Jerusalem explains why nothing is heard of Abner and his work in the Gospel records of the New Testament. This feud between Jerusalem and Philadelphia lasted throughout the lifetimes of James and Abner and continued for some time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Philadelphia was really the headquarters of the early church in the south and east as Antioch was in the north and west.

166:5.4 (1831.7) It was the apparent misfortune of Abner to be at variance with all of the leaders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He fell out with Peter and James (Jesus' brother) over questions of administrati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Jerusalem church; he parted company with Paul over differences of philosophy and theology. Abner was more Babylonian than Hellenic in his philosophy, and he stubbornly resisted all attempts of Paul to remake the teachings of Jesus so as to present less that was objectionable, first to the Jews, then to the Greco-Roman believers in the mysteries.

166:5.5 (1832.1) Thus was Abner compelled to live a life of isolation. He was head of a church which was without standing at Jerusalem. He had dared to defy James the Lord's brother, who was subsequently supported by Peter. Such conduct effectively separated him from all his former associates. Then he dared to withstand Paul. Although he was wholly sympathetic with Paul in his mission to the gentiles, and though he supported him in his contentions with the church at Jerusalem, he bitterly opposed the version of Jesus' teachings which Paul elected to preach. In his last years Abner denounced Paul as the "clever corrupter of the lif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the living God."

166:5.6 (1832.2) During the later years of Abner and for some time thereafter, the believers at Philadelphia held more strictly to the religion of Jesus, as he lived and taught, than any other group on earth.

166:5.7 (1832.3) Abner lived to be 89 years old, dying at Philadelphia on the 21st day of November, A.D. 74. And to the very end he was a faithful believer in, and teacher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제167편. 필라델피아 방문

⇨ 166

유랜시아 책

168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67편
필라델피아 방문

섹션

소개

1. 바리새인과 아침 식사를 함
2. 큰 만찬의 비유
3. 무기력한 기질의 여자
4. 베다니에서 온 소식
5. 베다니로 가는 길에서
6. 어린아이를 축복함
7. 천사에 관한 대화

PAPER 167

THE VISIT TO PHILADELPHIA

SECTIONS

Introduction

1. Breakfast with the Pharisees
2. Parable of the Great Supper
3. The Woman with the Spirit of Infirmary
4. The Message from Bethany
5. On the Way to Bethany
6. Blessing the Little Children
7. The Talk about Angels

소개

베레아에서 사역한 이 기간 내내, 70인이 활동하던 여러 장소에 **예수**와 사도들이 방문한 것을 언급할 때 상기해야 할 점은, 적어도 두 명의 사도는 **펠라**에서 대중을 가르치기 위해 남았으므로, 대개 열 명만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필라델피아**로 계속 여행하려고 준비했을 때,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모인 사람을 가르치려고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주님**이 **베레아**를 방문하기 위해 **펠라** 야영지를 떠났을 때, 300내지 500명이 그를 따랐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600명 이상의 추종자가 따라왔다.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친 일 외에는, **데가볼리**를 지나면서 전도하는 최근의 여행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베레아** 전도여행에서는 이때까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복음이 기적 없이도 능력 있게 선포된 기간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들 없이도 이뤄졌다.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2월 22일 수요일에 **필**

INTRODUCTION

167:0.1 (1833.1) THROUGHOUT this period of the Perea ministry, when mention is made of Jesus and the apostles visiting the various localities where the seventy were at work, it should be recalled that, as a rule, only ten were with him since it was the practice to leave at least two of the apostles at Pella to instruct the multitude. As Jesus prepared to go on to Philadelphia, Simon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returned to the Pella encampment to teach the crowds there assembled. When the Master left the camp at Pella to visit about Perea, it was not uncommon for from three to five hundred of the campers to follow him. When he arrived at Philadelphia, he was accompanied by over six hundred followers.

167:0.2 (1833.2) No miracles had attended the recent preaching tour through the Decapolis, and, excepting the cleansing of the ten lepers, thus far there had been no miracles on this Perea mission. This was a period when the gospel was proclaimed with power, without miracles, and most of the time without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or even of his apostles.

167:0.3 (1833.3) Jesus and the ten apostles arrived at

라델피아에 도착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최근의 여행과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면서 보냈다. 그 금요일 밤에 **아고보**가 회당에서 강론했으며, 다음 날 저녁에는 총회가 소집됐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인근 마을들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다윗**의 심부름꾼들도, **팔레스틴** 전역에서 천국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및 **다마스쿠스**에서도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Philadelphia on Wednesday, February 22, and spent Thursday and Friday resting from their recent travels and labors. That Friday night James spoke in the synagogue, and a general council was called for the following evening. They were much rejoiced over the progress of the gospel at Philadelphia and among the near-by villages. The messengers of David also brought word of the further advancement of the kingdom throughout Palestine, as well as good news from Alexandria and Damascus.

1. 바리새인과 아침 식사를 함

아브넬의 교훈을 받아들인, 매우 부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어느 **바리새인**이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는데, **안식일** 아침 식사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 무렵에 **예수**께서 **필라델피아**에 오리라는 소문이 퍼졌으며; 그래서 큰 무리의 방문객이 **예루살렘** 및 다른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도자들 가운데 약 40명과 몇 명의 율법사가, **주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아침 식사에 초대됐다.

예수께서 **아브넬**과 이야기하면서 문 옆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인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고 **산헤드린** 회원인 한 사람이, 습관대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의 왼쪽 명예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을 위해 예비됐고, 오른쪽 자리는 **아브넬**이 앉게 돼있었으므로, 주인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에게 손짓해서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앉도록 하자, 이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명예석에 앉지 못한 것 때문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참석한 그들 대부분이 **예수**의 제자이거나 복음에 우호적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곧 자리에 앉아서 저희끼리 대화 나누기에 여념 없었다. 다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을 그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브넬**은, 식사 시작 전에는 손을 씻었으나,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는 씻지 않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오랫동안 만성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이제는 수종{水腫} 증세를 보이는 한 사람이 길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신자였고, 최근에 **아브넬**의 동역자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가 **예수**께 치유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고난당하던 이 사람이, 자신을 밀치는 인파를 피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았다. 이 사람은, 당시에 기적이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튼, 자신의 딱한 상태가 **주님**의 동정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틀리지 않았는데, 방에 들어서자, **예루살렘**에서 온 독선적인 **바리새인**과 **예수**께서 그가 들

1. BREAKFAST WITH THE PHARISEES

167:1.1 (1833.4) There lived in Philadelphia a very wealthy and influential Pharisee who had accepted the teachings of Abner, and who invited Jesus to his house Sabbath morning for breakfast. It was known that Jesus was expected in Philadelphia at this time; so a large number of visitors, among them many Pharisees, had come over from Jerusalem and from elsewhere. Accordingly, about forty of these leading men and a few lawyers were bidden to this breakfast, which had been arranged in honor of the Master.

167:1.2 (1833.5) As Jesus lingered by the door, speaking with Abner, and after the host had seated himself, there came into the room one of the leading Pharisees of Jerusalem, a member of the Sanhedrin, and as was his habit, he made straight for the seat of honor at the left of the host. But since this place had been reserved for the Master and that on the right for Abner, the host beckoned the Jerusalem Pharisee to sit four seats to the left, and this dignitary was much offended because he did not receive the seat of honor.

167:1.3 (1834.1) Soon they were all seated and enjoying the visiting among themselves since the majority of those present were disciples of Jesus or else were friendly to the gospel. Only his enemies took notice of the fact that he did not observe the ceremonial washing of his hands before he sat down to eat. Abner washed his hands at the beginning of the meal but not during the serving.

167:1.4 (1834.2) Near the end of the meal there came in from the street a man long afflicted with a chronic disease and now in a dropsical condition. This man was a believer, having recently been baptized by Abner's associates. He made no request of Jesus for healing, but the Master knew full well that this afflicted man came to this breakfast hoping thereby to escape the crowds which thronged him and thus be more likely to engage his attention. This man knew that few miracles were then being performed; however, he had reasoned in his heart that his sorry plight might possibly appeal to the Master's compassion. And he was not mistaken, for, when

어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은 결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고 매우 온화한 미소를 지었으므로, 그가 다가와서 바닥에 앉았다. 식사가 끝나자, **주님**은 동료 손님들을 바라보고, 수종중에 걸린 사람을 의미심장하게 잠깐 쳐다본 후에 말씀했다: “친구들아, **이스라엘**의 선생과 학식 있는 율법사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하고 싶다: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있던 자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았으므로, 잠자코 있었으며;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앉아있는 병자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했다: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가 치유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나는 네 마음의 소원과 네 혼의 신앙을 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방을 나서기 전에 자리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은 그들을 향해 말씀했다: “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라고 너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답다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동물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즉시 가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분명하게 승낙했으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했다: “형제들아, 너희가 결혼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됐기 때문에,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그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이다. 지혜의 일종일 것인데, 잔치에 초대받거든, 잔칫상에 가서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손님들을 훑어보다가 네게, ‘친구여,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저녁 식사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 너와 가까운 사람, 또는 부유한 이웃들만 항상 청하지 마라. 그들은 답례로 너를 잔치에 초대할 것이므로, 네가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불구자, 눈 먼 자들을 가끔 초대해라. 이렇게 하면 네 마음 속에 복을 받을 것이니,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은 너희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잘 알기 때문이다.”

he entered the room, both Jesus and the self-righteous Pharisee from Jerusalem took notice of him. The Pharisee was not slow to voice his resentment that such a one should be permitted to enter the room. But Jesus looked upon the sick man and smiled so benignly that he drew near and sat down upon the floor. As the meal was ending, the Master looked over his fellow guests and then, after glancing significantly at the man with dropsy, said: “My friends, teachers in Israel and learned lawyers,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s it lawful to heal the sick and afflicted on the Sabbath day, or not?” But those who were there present knew Jesus too well; they held their peace; they answered not his question.

167:1.5 (1834.3) Then went Jesus over to where the sick man sat and, taking him by the hand, said: “Arise and go your way. You have not asked to be healed, but I know the desire of your heart and the faith of your soul.” Before the man left the room, Jesus returned to his seat and, addressing those at the table, said: “Such works my Father does, not to tempt you into the kingdom, but to reveal himself to those who are already in the kingdom. You can perceive that it would be like the Father to do just such things because which one of you, having a favorite animal that fell in the well on the Sabbath day, would not go right out and draw him up?” And since no one would answer him, and inasmuch as his host evidently approved of what was going on, Jesus stood up and spoke to all present: “My brethren, when you are bidden to a marriage feast, sit not down in the chief seat, lest, perchance, a more honored man than you has been invited, and the host will have to come to you and request that you give your place to this other and honored guest. In this event, with shame you will be required to take a lower place at the table. When you are bidden to a feast, it would be the part of wisdom, on arriving at the festive table, to seek for the lowest place and take your seat therein, so that, when the host looks over the guests, he may say to you: ‘My friend, why sit in the seat of the least? come up higher’; and thus will such a one have glory in the presence of his fellow guests. Forget not,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while he who truly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Therefore, when you entertain at dinner or give a supper, invite not always your friends, your brethren, your kinsmen, or your rich neighbors that they in return may bid you to their feasts, and thus will you be recompensed. When you give a banquet, sometimes bid the poor, the maimed, and the blind. In this way you shall be blessed in your heart, for you well know that the lame and the halt cannot repay you for your loving ministry.”

2. 큰 만찬의 비유

2. PARABLE OF THE GREAT SUPPER

바리새인의 아침 식탁에서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 참석한 율법사들 가운데 하나가, 침묵을 깨고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자입니다.”—이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말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에게 우호적인 주인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어떤 성주(城主)가 큰 만찬을 베풀면서 많은 손님을 초대했고, 만찬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사람이 말했다: ‘방금 농장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러 가야하니;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섯 쌍의 소를 샀으므로, 그것들을 받으러 가야 하니;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내와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집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결혼 잔치를 준비시키고; 살편 송아지들을 잡았으며, 손님 맛을 준비가 다 됐지만, 그들이 내 초대를 거절했으며; 각자 자기 땅과 일터로 가버렸고, 내 잔치에 초대하러 간 종들을 무례히 대했다. 그러므로, 성읍 길거리와 골목, 큰길은 물론 냇길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 눈 먼 자와 절름발이를 막론하고 모두 데려와서, 결혼 잔치에 손님이 있게 하라.’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했지만, 아직도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다: ‘길거리와 시골에 지금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선언하겠는데, 처음에 초대됐던 사람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해서 그 집이 가득 찼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떠났으며;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냉소하던 **바리새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그날 아침 이 비유의 의미를 납득했음을 표했는데, 그날 세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그날 밤에 신자들의 총회에서 이 비유에 대해 설교했다.

이튿날 사도들은 모두, 큰 잔치에 관한 이 비유의 의미를 철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서로 다른 이 해석들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다만, “각자 자기 혼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도록 하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167:2.1 (1835.1) As Jesus finished speaking at the breakfast table of the Pharisee, one of the lawyers present, desiring to relieve the silence, thoughtlessly said: “Blessed is he who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 that being a common saying of those days. And then Jesus spoke a parable, which even his friendly host was compelled to take to heart. He said:

167:2.2 (1835.2) “A certain ruler gave a great supper, and having bidden many guests, he dispatched his servants at suppertime to say to those who were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And they all with one accord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arm, and I must needs to go prove it; I pray you have me excuse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must go to receive them; I pray you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just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So the servants went back and reported this to their master.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heard this, he was very angry, and turning to his servants, he said: ‘I have made ready this marriage feast; the fatlings are killed, and all is in readiness for my guests, but they have spurned my invitation; they have gone every man after his lands and his merchandise, and they even show disrespect to my servants who bid them come to my feast. Go out quickly, therefore,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out into the highways and the byways, and bring hither the poor and the outcast, the blind and the lame, that the marriage feast may have guests.’ And the servants did as their lord commanded, and even then there was room for more guests. Then said the lord to his servants: ‘Go now out into the roads and the countryside and constrain those who are ther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I declare that none of those who were first bidden shall taste of my supper.’ And the servants did as their master commanded, and the house was filled.”

167:2.3 (1835.3) And when they heard these words, they departed; every man went to his own place. At least one of the sneering Pharisees present that morning comprehended the meaning of this parable, for he was baptized that day and made public confession of his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bner preached on this parable that night at the general council of believers.

167:2.4 (1835.4) The next day all of the apostles engaged in the philosophic exercise of endeavoring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is parable of the great supper. Though Jesus listened with interest to all of these differing interpretations, he steadfastly refused to offer them further help in understanding the parable. He would only say, “Let every man find out the meaning for himself and in his own soul.”

3. 무기력한 기질의 여자

이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브넬**이 준비해 뒀는데, **산헤드린**의 명령으로 그의 교훈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예수**께서 회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께서는 잔뜩 구부러진 모습과 풀 죽은 표정으로 앞에 있는 나이 든 어떤 여자를 내려다봤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려 왔으며, 모든 기쁨이 그 여자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설교단에서 내려와 그 여자에게 가서, 활같이 휘어진 어깨에 손대며 말씀했다: “여자여, 네가 믿기만 한다면, 무기력한 기질(氣質)에서 온전히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18년 이상이나 두려워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혔고 굽어졌던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즉시 똑바로 서게 됐다. 이 여자는 똑바로 선 자신을 보자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여자의 병은 온전히 정신적인 것이었고, 휘어진 모습 역시 억압된 정신의 결과였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실제적인 육체의 질환을 치유했다고 생각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의 회중은 **예수**의 교훈에 우호적이었지만,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는 우호적이지 않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육체의 질환을 치유했던 것에 대해 회중과 의견을 나누다가, **예수**께서 감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분개하면서, 회중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옛새나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에는 와서 치유 받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안 된다.”

적의를 가진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단상으로 돌아가서 말씀했다: “왜 위선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느냐? 너희는 모두 **안식일**에 마구간에서 소를 끌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안식일**에 허용된다면, 오늘이 **안식일**일지라도, 18년 동안 악한 세력에 묶였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이런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와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자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비난하던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회중은 그 여자가 치유 받은 것에 대해 함께 기뻐했다.

이 **안식일**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인해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고, **예수**를 따르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는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3. THE WOMAN WITH THE SPIRIT OF INFIRMITY

167:3.1 (1835.5) Abner had arranged for the Master to teach in the synagogue on this Sabbath day, the first time Jesus had appeared in a synagogue since they had all been closed to his teachings by order of the Sanhedrin. At the conclusion of the service Jesus looked down before him upon an elderly woman who wore a downcast expression, and who was much bent in form. This woman had long been fear-ridden, and all joy had passed out of her life. As Jesus stepped down from the pulpit, he went over to her and, touching her bowed-over form on the shoulder, said: “Woman, if you would only believe, you could be wholly loosed from your spirit of infirmity.” And this woman, who had been bowed down and bound up by the depressions of fear for more than eighteen years, believed the words of the Master and by faith straightened up immediately. When this woman saw that she had been made straight, she lifted up her voice and glorified God.

167:3.2 (1836.1) Notwithstanding that this woman's affliction was wholly mental, her bowed-over form being the result of her depressed mind, the people thought that Jesus had healed a real physical disorder. Although the congregation of the synagogue at Philadelphia was friendly toward the teachings of Jesus, the chief ruler of the synagogue was an unfriendly Pharisee. And as he shared the opinion of the congregation that Jesus had healed a physical disorder, and being indignant because Jesus had presumed to do such a thing on the Sabbath, he stood up before the congregation and said: “Are there not six days in which men should do all their work? In these working days come, therefore, and be healed, but not on the Sabbath day.”

167:3.3 (1836.2) When the unfriendly ruler had thus spoken, Jesus returned to the speaker's platform and said: “Why play the part of hypocrites? Does not every one of you, on the Sabbath, loose his ox from the stall and lead him forth for watering? If such a service is permissible on the Sabbath day,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 has been bound down by evil these eighteen years, be loosed from this bondage and led forth to partake of the waters of liberty and life, even on this Sabbath day?” And as the woman continued to glorify God, his critic was put to shame, and the congregation rejoiced with her that she had been healed.

167:3.4 (1836.3) As a result of his public criticism of Jesus on this Sabbath the chief ruler of the synagogue was deposed, and a follower of Jesus was put in his place.

167:3.5 (1836.4) Jesus frequently delivered such

그들의 무기력한 기질에서, 정신적 우울증에서, 그리고 공포의 속박에서 종종 구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고난이 육체적인 병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일요일에 다시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날 오후에, 그 도시의 남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많은 사람이 **아브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다음 날 **펠라** 야영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윗**의 심부름꾼 하나가 도착해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예수**의 친구들이 보내온 급한 소식을 전했다.

4. 베다니에서 온 소식

2월 26일 일요일 아주 늦은 밤에, **베다니**에서 한 심부름꾼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매우 아픕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이 소식은, 저녁 회당이 끝나고 **예수**께서 잠자기 위해 사도들을 떠날 무렵에 전해졌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몸 바깥 저편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순간이 이번에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달자를 보면서, 사도들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씀했다. “이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들**을 높이도록 그것이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나사로**를 매우 좋아했으며; 뜨거운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에게 인간적으로 처음 생각난 것은 도와주러 즉시 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생각이 복합적인 정신에 떠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천국을 언젠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지만, 여전히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계획이 지금 떠올랐으며; 이 땅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엄청난 외적{外的} 활동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보여주기로, **아버지** 뜻에 따라 결정했다. **유대인**은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 관념에 젖어 있었다. 그는, 물질적 기적을 연출함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능력을 잠시 드러내는 행사에 의존하기를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이제까지 나타내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요청했다.

유대인은 죽은 그날로 시신을 묻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덤에 돌로써, 둘째 날 또는 심지어 셋째 날에도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영이나 혼이 육신 근처에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떠돌아다

victims of fear from their spirit of infirmity, from their depression of mind, and from their bondage of fear. But the people thought that all such afflictions were either physical disorders or possession of evil spirits.

167:3.6 (1836.5) Jesus taught again in the synagogue on Sunday, and many were baptized by Abner at noon on that day in the river which flowed south of the city. On the morrow Jesus and the ten apostles would have started back to the Pella encampment but for the arrival of one of David's messengers, who brought an urgent message to Jesus from his friends at Bethany, near Jerusalem.

4. THE MESSAGE FROM BETHANY

167:4.1 (1836.6) Very late on Sunday night, February 26, a runner from Bethany arrived at Philadelphia, bringing a message from Martha and Mary which said, “Lord, he whom you love is very sick.” This message reached Jesus at the close of the evening conference and just as he was taking leave of the apostles for the night. At first Jesus made no reply. There occurred one of those strange interludes, a time when he appeared to be in communication with something outside of, and beyond, himself. And then, looking up, he addressed the messenger in the hearing of the apostles, saying: “This sickness is really not to the death. Doubt not that it may be used to glorify God and exalt the Son.”

167:4.2 (1837.1) Jesus was very fond of Martha, Mary, and their brother, Lazarus; he loved them with a fervent affection. His first and human thought was to go to their assistance at once, but another idea came into his combined mind. He had almost given up hope that the Jewish leaders at Jerusalem would ever accept the kingdom, but he still loved his people, and there now occurred to him a plan whereby the scribes and Pharisees of Jerusalem might have one more chance to accept his teachings; and he decided, his Father willing, to make this last appeal to Jerusalem the most profound and stupendous outward working of his entire earth career. The Jews clung to the idea of a wonder-working deliverer. And though he refused to stoop to the performance of material wonders or to the enactment of temporal exhibitions of political power, he did now ask the Father's consent for the manifestation of his hitherto unexhibited power over life and death.

167:4.3 (1837.2) The Jews were in the habit of burying their dead on the day of their demise; this was a necessary practice in such a warm climate. It often happened that they put in the tomb one who was merely comatose, so that on the second or even the third day, such a one would come forth from the tomb. But it was the belief of the Jews

니지만, 셋째 날이 지나면 머물지 않는다는 것과; 넷째 날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도 무덤에서 돌아온 적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하기 전에, 만 일들을 더 필라델피아에 머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지금 즉시 유대지방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물려나서 서로 의논했다. 야고보가 회담을 진행했고, 예수께서 다시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데 그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 마음이 되어 돌아가서 보고했다.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당신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으니,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시려는 것들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열두 시간 있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가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밤에 걸어가면, 빛이 없으므로 자칫 넘어지기 쉬울 것이다. 내 날이 계속되는 한, 나는 유대지방에 들어가지가 두렵지 않다. 이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적을 행하려고 하며, 바로 그들이 바라는 조건--곧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와 외적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고자 함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사도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시에는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인데,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분명하게 다시 말씀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하고, 결국 너희가 새로운 이유로 나를 믿게 될 것이며; 너희가 증거 할 그것으로 인해,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을 준비하기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유대지방으로 가려는 것을 만류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도들은 함께 가는 것조차 질색하며 싫어할 때, 도마가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베다니로 가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끝이 왔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들이 분명히 주님을 죽이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선택이라면, 용감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자;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언제나 그랬듯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

that, while the spirit or soul might linger near the body for two or three days, it never tarried after the third day; that decay was well advanced by the fourth day, and that no one ever returned from the tomb after the lapse of such a period. And it was for these reasons that Jesus tarried yet two full days in Philadelphia before he made ready to start for Bethany.

167:4.4 (1837.3) Accordingly, early on Wednesday morning he said to his apostles: “Let us prepare at once to go into Judea again.” And when the apostles heard their Master say this, they drew off by themselves for a time to take counsel of one another. James assumed the direction of the conference, and they all agreed that it was only folly to allow Jesus to go again into Judea, and they came back as one man and so informed him. Said James: “Master, you were in Jerusalem a few weeks back, and the leaders sought your death, while the people were minded to stone you. At that time you gave these men their chance to receive the truth, and we will not permit you to go again into Judea.”

167:4.5 (1837.4) Then said Jesus: “But do you not understand that there are twelve hours of the day in which work may safely be done? If a man walks in the day, he does not stumble inasmuch as he has light. If a man walks in the night, he is liable to stumble since he is without light. As long as my day lasts, I fear not to enter Judea. I would do one more mighty work for these Jews; I would give them one more chance to believe, even on their own terms — conditions of outward glory and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the power of the Father and the love of the Son. Besides, do you not realize that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and I would go to awake him out of this sleep!”

167:4.6 (1837.5) Then said one of the apostles: “Master, if Lazarus has fallen asleep, then will he the more surely recover.” It was the custom of the Jews at that time to speak of death as a form of sleep, but as the apostles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meant that Lazarus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he now said plainly: “Lazarus is dead. And I am glad for your sakes, even if the others are not thereby saved, that I was not there, to the end that you shall now have new cause to believe in me; and by that which you will witness, you should all be strengthened in preparation for that day when I shall take leave of you and go to the Father.”

167:4.7 (1838.1) When they could not persuade him to refrain from going into Judea, and when some of the apostles were loath even to accompany him, Thomas addressed his fellows, saying: “We have told the Master our fears, but he is determined to go to Bethany. I am satisfied it means the end; they will surely kill him, but if that is the Master’s choice, then let us acquit ourselves like men of courage; let us go also that we may die with him.”

에서는, **도마**가 항상 열두 사도의 기둥 역할을 했다.

And it was ever so; in matters requiring deliberate and sustained courage, Thomas was always the mainstay of the twelve apostles.

5. 베다니로 가는 길에서

유대지방으로 가는 길에는, 50명 정도 되는 친구 및 반대자 일행이 **예수**를 따라갔다. 수요일 점심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따라오는 무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 말씀했고, 훈계를 마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곧 세금 징수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자,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업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으며, 공중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신앙의 부족을 보상하지 못한다. 너희의 외적{外的} 예배로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혼을 들여다보신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설명할 것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말로: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즉 착취자, 무식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심지어 이 세리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 주 두 번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라고 했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지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리고**에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동료들이 갈릴리에서 한때 그랬듯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토론에 끌어들이므로써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지만, **예수**께서는 이혼에 관한 그들의 법에 저촉되도록 유도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기술적으로 피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예증했듯이, **유대인** 관례에 의거한 한결 뛰어난 결혼 예법과, **모세의** 이혼 법령을 **바리새주의**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정도가 된 방종을, 그들의 이혼 풍습이 대조하여 보여줬다. **바리새인**은 가장 낮은 기준과 비교해서 자기를 판단했고, 세리는 가장 높은 이상에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했다. **바리새인**에게 헌신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영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거짓된 표시였으며; 세리에게 헌신은, 회개와 고백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비로운 용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자기 혼을 자극하는 수단이었다. **바리새인**은 정당성을 구했지만; 세리는 자비를 구했다. 우주의 법칙은 이렇다: 간청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5. ON THE WAY TO BETHANY

167:5.1 (1838.2) On the way to Judea Jesus was followed by a company of almost fifty of his friends and enemies. At their noon lunchtime, on Wednesday, he talked to his apostles and this group of followers on the “Terms of Salvation,” and at the end of this lesson tol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publican (a tax collector). Said Jesus: “You see, then, that the Father gives salvation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is salvation is a free gift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receive sonship in the divine family. There is nothing man can do to earn this salvation. Works of self-righteousness cannot buy the favor of God, and much praying in public will not atone for lack of living faith in the heart. Men you may deceive by your outward service, but God looks into your souls. What I am telling you is well illustrated by two men who went into the temple to pray, the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publican. 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o himself: ‘O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the rest of men, extortioners, unlearned,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publican.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But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so much as lift his eyes to heaven but smote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I tell you that the publican went home with God’s approval rather than the Pharisee, for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167:5.2 (1838.3) That night, in Jericho, the unfriendly Pharisees sought to entrap the Master by inducing him to discuss marriage and divorce, as did their fellows one time in Galilee, but Jesus artfully avoided their efforts to bring him into conflict with their laws concerning divorce. As the publican and the Pharisee illustrated good and bad religion, their divorce practices served to contrast the better marriage laws of the Jewish code with the disgraceful laxity of the Pharisaic interpretations of these Mosaic divorce statutes. The Pharisee judged himself by the lowest standard; the publican squared himself by the highest ideal. Devotion, to the Pharisee, was a means of inducing self-righteous inactivity and the assurance of false spiritual security; devotion, to the publican, was a means of stirring up his soul to the realization of the need for repentance, confession, and the acceptance, by faith, of merciful forgiveness. The Pharisee sought justice; the publican sought mercy. The law of the universe is: Ask and you shall receive; seek and you shall find.

이혼에 관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기는 거절했지만, 결혼을 최고의 이상{理想}으로 간주하는 긍정적 가르침을 선포했다.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칭찬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방종하고 불공정한 이혼 관습을 강력히 반박했는데, 그들은 당시에, 음식 솜씨 없는 것,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또는 자신이 더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했다는 이유보다 훨씬 못한, 그런 아주 하찮은 이유로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바리새인은, 가지각색의 이런 쉬운 이혼이 **유대인**에게, 특히 **바리새인**에게 부여된,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를 거절했고, 결혼 관계의 이런 부끄럽고 경멸스런 행동을 몹시 비난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어떤 이혼 관습도 허용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주님**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훈에만 찬성했다.

예수께서는, 비록 결혼과 이혼에 적용될만한 새로운 명령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유대인**에게 그들 자신의 법률과 비교적 더 고상한 교훈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했다. 그들의 풍습이 이런 사회 계통을 따라서 발전하게 하려고, 그는 늘 성문화된 **성서**를 참조했다. **예수**께서는 결혼에 대한 고상하고 이상적인 개념을 그렇게 변호하는 동시에, 성문화된 법 또는 그들이 무척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혼 특권이 가리키는 사회 풍습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피했다.

과학,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에 관해 언급하기를 확실히 피하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들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오직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의 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에, 사도들은 그날 저녁 늦게 은밀히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생각이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해결됐다. **예수**께서는 이 회담을 마치면서 말씀했다: “결혼은 고상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다.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홀로 추구한다는 사실은, 결혼이 바람직하가 아닌가를, 어떤 면에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만, 바로 그 **아버지**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도록 지시하셨고, 남녀가 자녀를 맡아 가르치기 위해 가정을 꾸미는 일과, 그들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협조하는 일에 최선의 봉사를 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기쁨을 찾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굳게

167:5.3 (1838.4) Though Jesus refused to be drawn into a controversy with the Pharisees concerning divorce, he did proclaim a positive teaching of the highest ideals regarding marriage. He exalted marriage as the most ideal and highest of all human relationships. Likewise, he intimated strong disapproval of the lax and unfair divorce practices of the Jerusalem Jews, who at that time permitted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the most trifling of reasons, such as being a poor cook, a faulty housekeeper, or for no better reason than that he had become enamored of a better-looking woman.

167:5.4 (1839.1) The Pharisees had even gone so far as to teach that divorce of this easy variety was a special dispensation granted the Jewish people, particularly the Pharisees. And so, while Jesus refused to make pronouncements dealing with marriage and divorce, he did most bitterly denounce these shameful floutings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and pointed out their injustice to women and children. He never sanctioned any divorce practice which gave man any advantage over woman; the Master countenanced only those teachings which accorded women equality with men.

167:5.5 (1839.2) Although Jesus did not offer new mandates governing marriage and divorce, he did urge the Jews to live up to their own laws and higher teachings. He constantly appealed to the written Scriptures in his effort to improve their practices along these social lines. While thus upholding the high and ideal concepts of marriage, Jesus skillfully avoided clashing with his questioners about the social practices represented by either their written laws or their much-cherished divorce privileges.

167:5.6 (1839.3)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apostles to understand the Master's reluctance to make positive pronouncements relative to scientific,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They did not fully realize that his earth mission was exclusively concerned with revelations of spiritual and religious truths.

167:5.7 (1839.4) After Jesus had talked about marriage and divorce, later on that evening his apostles privately asked many additional questions, and his answers to these inquiries relieved their minds of many misconceptions. At the conclusion of this conference Jesus said: “Marriage is honorable and is to be desired by all men. The fact that the Son of Man pursues his earth mission alone is in no way a reflection on the desirability of marriage. That I should so work is the Father's will, but this same Father has directed the creation of male and female, and it is the divine will that men and women should find their highest service and consequent joy in the establishment of homes for the reception and training of children, in the creation of whom these parents become

결합해야 하고, 두 사람이 하나처럼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결혼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풀어줬고, 이혼에 관한 많은 오해를 씻어줬으며; 동시에 사회적 합동에 대한 그들의 이상(理想)을 높여주도록,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 및 가정을 그들이 더 존중하도록 많이 기여했다.

6. 어린아이를 축복함

그날 저녁에, 결혼에 관계된 **예수**의 메시지와,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져서,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사도들이 떠날 준비를 하기 훨씬 전에, 아침 식사시간이 이르기 전임에도,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팔에 안거나 손을 잡아 이끌며 **예수**께서 머무는 곳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사도들은 아이들과 함께 모여든 어머니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여자들은 **주님**이 아이에게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사도들이 큰 소리로 이 어머니들을 꾸짖자, **예수**께서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나와서 분개하며 그들을 책망했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하라; 하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 막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는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자랄 것이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모든 아이를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얹었고, 아이의 어머니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했다.

예수께서는 천상(天上)에 있는 팬션에 대해 사도들에게 종종 말씀했고, 상승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거기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이날, **네바돈**에서 구경하던 지성체들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노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이와 어머니들이 거의 깨닫지 못한 것처럼, 신성시되는 것들이 종종 평범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팔레스틴에서 여자의 지위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이 향상됐으며; **예수**가 공들여 가르쳤던 것을 추종자들이 그토록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신성한 경배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초기의 종교적 훈련 문제를 토론하던 중에, 경배드리고 싶은 충동으로 이끄는 영향으로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아름다움이 대단히 귀중하다는

copartners with the Makers of heaven and earth. And for this caus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cleave to his wife, and they two shall become as one.”

167:5.8 (1839.5) And in this way Jesus relieved the minds of the apostles of many worries about marriage and cleared up many misunderstandings regarding divorce; at the same time he did much to exalt their ideals of social union and to augment their respect for women and children and for the home.

6. BLESSING THE LITTLE CHILDREN

167:6.1 (1839.6) That evening Jesus' message regarding marriage and the blessedness of children spread all over Jericho, so that the next morning, long before Jesus and the apostles prepared to leave, even before breakfast time, scores of mothers came to where Jesus lodged, bringing their children in their arms and leading them by their hands, and desired that he bless the little ones. When the apostles went out to view this assemblage of mothers with their children, they endeavored to send them away, but these women refused to depart until the Master laid his hands on their children and blessed them. And when the apostles loudly rebuked these mothers, Jesus, hearing the tumult, came out and indignantly reproved them, saying: "Suffer little children to come to me;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heaven.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osoever receives not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hardly enter therein to grow up to the full stature of spiritual manhood."

167:6.2 (1840.1) And when the Master had spoken to his apostles, he received all of the children, laying his hands on them, while he spoke words of courage and hope to their mothers.

167:6.3 (1839.8) Jesus often talked to his apostles about the celestial mansions and taught that the advancing children of God must there grow up spiritually as children grow up physically on this world. And so does the sacred oftentimes appear to be the common, as on this day these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ttle realized that the onlooking intelligences of Nebadon beheld the children of Jericho playing with the Creator of a universe.

167:6.4 (1839.9) Woman's status in Palestine was much improved by Jesus' teaching; and so it would have been throughout the world if his followers had not departed so far from that which he painstakingly taught them.

167:6.5 (1839.10) It was also at Jericho,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f the early religious training of children in habits of divine worship, that Jesus impressed upon his apostles the great value of

것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강조한 것도 **여리고**에서였다. 창조된 자연 환경에서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가 가치 있음을, **주님**은 훈계와 실제 예를 통해서 가르쳤다. **주님**은, 나무들 사이에서, 자연 세계의 하등 피조물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더 좋아했다. **주님**은, **창조주 아들**들이 만든 별처럼 빛나는 세계들이 연출하는 영광을 일으키는 광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목상하기를 기뻐했다.

사람은, 자연을 예배당 삼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를 갖추고 예술적으로 꾸며진 예배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로 인도하는 지적 접근과 함께, 가장 고상한 인간 감정이 자극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거룩함은, 참된 경배를 드리기에 효과적인 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 친교는, 단순히 육중한 장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정교하고 허식적인 예술로 과도하게 꾸밈으로써 증진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결여되고, 기분 좋게 하고 영감 주는 거룩함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는, 냉랭하고 재미없는 방에서 드리는 공중 경배 개념을 어린아이들이 처음 소개 받아야만 함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어린이에게는 먼저 바깥의 자연에서 경배하기를 소개해야 하고, 후에 부모와 함께 종교 모임이 있는 대중적 처소에 가도록 해야 하며, 그가 매일 살고 있는 집처럼, 그곳은 최소한 실질적으로 흥미를 주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7. 천사에 관한 대화

그들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가면서 언덕을 오르는 동안 거의 대부분, **나다니엘**이 **예수** 옆에서 걸어갔고, 하늘 나라와 관련하여 아이들에 대해 토의하다가, 결국 천사의 사역을 검토하게 됐다. **나다니엘**이 마침내 **주님**께 질문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으니, 우리는 하늘의 사역자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른 것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다:

“천사 무리는 창조된 존재들 가운데 별개의 종류이며; 필사 피조물의 물질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고, 우주 지성체들 가운데 독특한 집단으로서 활동한다. 천사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피조물 집단이 아니며; 또한 높은 곳에 있는 맨션들을 통해서 이미 진보된 필사적 사람의 영화(靈化)된 영도 아니다. 천사는 직접 창조되고, 스스로 번식하지 못한다. 천사 무리는 인간 종족과 오직 영적인 면에서만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사람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진보해 가면서, 한때 천사와 비슷한 상태를 거치는 하지만, 필사적 사람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beauty as an influence leading to the urge to worship, especially with children. The Master by precept and example taught the value of worshiping the Creator in the midst of the natural surroundings of creation. He preferred to commune with the heavenly Father amidst the trees and among the lowly creatures of the natural world. He rejoiced to contemplate the Father through the inspiring spectacle of the starry realms of the Creator Sons.

167:6.6 (1839.11) When it is not possible to worship God in the tabernacles of nature, men should do their best to provide houses of beauty, sanctuaries of appealing simplicity and artistic embellishment, so that the highest of human emotions may be aroused in association with the intellectual approach to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Truth, beauty, and holiness are powerful and effective aids to true worship. But spirit communion is not promoted by mere massive ornateness and overmuch embellishment with man's elaborate and ostentatious art. Beauty is most religious when it is most simple and naturelike. How unfortunate that little children should have their first introduction to concepts of public worship in cold and barren rooms so devoid of the beauty appeal and so empty of all suggestion of good cheer and inspiring holiness! The child should be introduced to worship in nature's outdoors and later accompany his parents to public houses of religious assembly which are at least as materially attractive and artistically beautiful as the home in which he is daily domiciled.

7. THE TALK ABOUT ANGELS

167:7.1 (1840.6) As they journeyed up the hills from Jericho to Bethany, Nathaniel walked most of the way by the side of Jesus, and their discussion of children in relation to the kingdom of heaven led indirectly to the consideration of the ministry of angels. Nathaniel finally asked the Master this question: “Seeing that the high priest is a Sadducee, and since the Sadducees do not believe in angels, what shall we teach the people regarding the heavenly ministers?” Then, among other things, Jesus said:

167:7.2 (1841.1) “The angelic hosts are a separate order of created beings; they ar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aterial order of mortal creatures, and they function as a distinct group of universe intelligences. Angels are not of that group of creatures called ‘the Sons of God’ in the Scriptures; neither are they the glorified spirits of mortal men who have gone on to progress through the mansions on high. Angels are a direct creation, and they do not reproduce themselves. The angelic hosts have only a spiritual kinship with the human race. As man progresses in the journey to

“사람과는 달리, 천사는 죽지 않는다. 천사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면 불멸(不滅)한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 하인이며, 온전히 지혜롭지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든 천사는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가 성별(聖別)된 영적 눈을 갖게 된다면,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 세계가 다른 세계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사역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면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자질하고, 육신적 행위를 보고하는, 영계(靈界)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우주의 다른 먼 부분들이 행하는 일에 관하여, 하늘 창조계 가운데 한 부분에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천사 중에 다수는, **아버지**의 정부(政府)와 **아들**들의 우주들에서 작용하는 한편, 인간 종족들에 대한 봉사에 배정된다. 이 스라빔 가운데 다수가 섬기는 영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나는 상징적인 언어나 시적인 선율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납득하기가 너희에게 어렵겠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이 천사들 가운데 다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 혼이 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스라빔도 기뻐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기쁨이 하늘의 천사들 앞에 있다는 것까지 내가 말함으로써, 필사적 사람의 신성한 진보와 영적 행복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을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풀어주고, 그의 혼을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호송하는 수단과도 매우 많이 관련된다. 천사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 거주지의 새로운 생애 사이에 끼어있는, 미지(未知)의 불확정적인 기간에 사람의 혼을 확실히 안내하는, 천상의 안내자다.”

그리고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 **나다니엘**과 더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마르다**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멈췄는데, **마르다**는 **주님**이 **베다니**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동쪽으로 언덕을 올라오는 그를 봤던 친구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때 서둘러 그를 맞이하러 왔다.

the Father in Paradise, he does traverse a state of being at one time analogous to the state of the angels, but mortal man never becomes an angel.

167:7.3 (1841.2) “The angels never die, as man does.

The angels are immortal unless, perchance, they become involved in sin as did some of them with the deceptions of Lucifer. The angels are the spirit servants in heaven, and they are neither all-wise nor all-powerful. But all of the loyal angels are truly pure and holy.

167:7.4 (1841.3) “And do you not remember that I said

to you once before that, if you had your spiritual eyes anointed, you would then see the heavens opened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It is by the ministry of the angels that one world may be kept in touch with other worlds, for have I not repeatedly told you that I have other sheep not of this fold? And these angels are not the spies of the spirit world who watch upon you and then go forth to tell the Father the thoughts of your heart and to report on the deeds of the flesh. The Father has no need of such service inasmuch as his own spirit lives within you. But these angelic spirits do function to keep one part of the heavenly creation informed concerning the doings of other and remote parts of the universe. And many of the angels, while functioning in the government of the Father and the universes of the Son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human races. When I taught you that many of these seraphim are ministering spirits, I spoke not in figurative language nor in poetic strains. And all this is true, regardless of your difficulty in comprehending such matters.

167:7.5 (1841.4) “Many of these angels are engaged in

the work of saving men, for have I not told you of the seraphic joy when one soul elects to forsake sin and begin the search for God? I did even tell you of the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ereby indicating the existence of other and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who are likewise concerned in the spiritual welfare and with the divine progress of mortal man.

167:7.6 (1841.5) “Also are these angels very much

concerned with the means whereby man's spirit is released from the tabernacles of the flesh and his soul escorted to the mansions in heaven. Angels are the sure and heavenly guides of the soul of man during that uncharted and indefinite period of time which intervenes between the death of the flesh and the new life in the spirit abodes.”

167:7.7 (1841.6) And he would have spoken further

with Nathaniel regarding the ministry of angels, but he was interrupted by the approach of Martha, who had been informed that the Master was drawing near to Bethany by friends who had observed him ascending the hills to the east. And she now hastened to greet him.

제 168편. 나사로의 부활

⇨ 167

유랜시아 책

169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68편
나사로의 부활

섹션

소개

1. 나사로의 무덤에서
2. 나사로의 부활
3. 산헤드린 회의
4. 기도에 대한 응답
5.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PAPER 168

THE RESURRECTION OF LAZARUS

SECTIONS

Introduction

1. At the Tomb of Lazarus
2. The Resurrection of Lazarus
3. Meeting of the Sanhedrin
4. The Answer to Prayer
5. What Became of Lazarus

소개

베다니 근처 언덕 꼭대기에 올라온 **예수**를 **마르다**가 만나러 나간 때는, 정오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다.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는 나흘 전에 죽었고, 정원 맨 구석에 있는 그들의 개인 묘지에 일요일 오후 늦게 묻혔다.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은 것은, 이 목요일 날 아침이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전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것에 관해 무엇이든지 해 줄 것으로 확신했다. 그들은 **나사로**가 절망적일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예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우려 오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관련된 말씀만 해도 **나사로**가 즉시 나올 수 있는 **예수**의 치유 능력을 확신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 **필라델피아**를 향해 **베다니**를 떠난 후에, 몇 시간도 못 돼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주님**이 그 형제의 발병을 너무 늦게까지, 즉 그가 이미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화요일 오후에 **베다니**로 돌아온 그 심부름꾼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물론 모든 믿는 친구들도 무척 당황했다. **예수**께서, "...이

INTRODUCTION

168:0.1 (1842.1) IT WAS shortly after noon when Martha started out to meet Jesus as he came over the brow of the hill near Bethany. Her brother, Lazarus, had been dead four days and had been laid away in their private tomb at the far end of the garden late on Sunday afternoon. The stone at the entrance of the tomb had been rolled in place on the morning of this day, Thursday.

168:0.2 (1842.2) When Martha and Mary sent word to Jesus concerning Lazarus's illness, they were confident the Master would do something about it. They knew that their brother was desperately sick, and though they hardly dared hope that Jesus would leave his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to come to their assistance, they had such confidence in his power to heal disease that they thought he would just speak the curative words, and Lazarus would immediately be made whole. And when Lazarus died a few hours after the messenger left Bethany for Philadelphia, they reasoned that it was because the Master did not learn of their brother's illness until it was too late, until he had already been dead for several hours.

168:0.3 (1842.3) But they, with all of their believing friends, were greatly puzzled by the message which the runner brought back Tuesday forenoon when he reached Bethany. The messenger

병으로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심부름꾼이 주장했다. **예수**께서 왜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았는지, 도움 될 만한 어떤 조언도 왜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슬픔에 잠긴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 인근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친구가 왔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자녀였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예수**를 오랫동안 열렬하게 따랐음에도,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우 존경 받았다. 그들은 넓은 포도원과 이 근처에 있는 감람나무 과수원들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토지 안에 개인 무덤을 둘 정도였다는 사실로 더욱 입증된다. 그들의 두 부모는 이미 이 무덤에 묻혀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포기하고 비탄에 빠졌지만, **마르다**는, 돌을 무덤 앞에 굴려서 입구를 인봉{印封}하던 바로 그 아침까지도, **예수**께서 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마르다**는, **베다니** 동쪽 언덕 꼭대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계속 지켜보라고, 이웃 아이에게 당부했으며; **예수**와 그 친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전한 사람은 이 아이였다.

예수를 만나자, **마르다**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많은 근심이 **마르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았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주님**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마르다**가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허리를 굽혀 **마르다**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 “**마르다**야, 오직 신앙만 가져라, 그러면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며;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께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실로, 나를 믿으면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진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께 대답했다: “예, 나는 당신이 **구원주**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도 오래 전부터 믿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대해 물어봤으므로, **마르다**는 곧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에게 귓속말로, “**주님**이 여기 오셨고 너를 찾으신다”고 말했다.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곧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러 서둘러 나갔으며,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던, 그

insisted that he heard Jesus say, “...this sickness is really not to the death.” Neither could they understand why he sent no word to them nor otherwise proffered assistance.

168:0.4 (1842.4) Many friends from near-by hamlets and others from Jerusalem came over to comfort the sorrow-stricken sisters. Lazarus and his sisters were the children of a well-to-do and honorable Jew, one who had been the leading resident of the little village of Bethany. And notwithstanding that all three had long been ardent followers of Jesus, they were highly respected by all who knew them. They had inherited extensive vineyards and olive orchards in this vicinity, and that they were wealthy was further attested by the fact that they could afford a private burial tomb on their own premises. Both of their parents had already been laid away in this tomb.

168:0.5 (1842.5) Mary had given up the thought of Jesus' coming and was abandoned to her grief, but Martha clung to the hope that Jesus would come, even up to the time on that very morning when they rolled the stone in front of the tomb and sealed the entrance. Even then she instructed a neighbor lad to keep watch down the Jericho road from the brow of the hill to the east of Bethany; and it was this lad who brought tidings to Martha that Jesus and his friends were approaching.

168:0.6 (1842.6) When Martha met Jesus, she fell at his feet, exclaiming, “Master,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Many fears were passing through Martha's mind, but she gave expression to no doubt, nor did she venture to criticize or question the Master's conduct as related to Lazarus's death. When she had spoken, Jesus reached down and, lifting her upon her feet, said, “Only have faith, Martha, and your brother shall rise again.” Then answered Martha: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of the last day; and even now I believe that whatever you shall ask of God, our Father will give you.”

168:0.7 (1843.1) Then said Jesus, looking straight into the eyes of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dies, yet shall he live. In truth, whos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really die. Martha, do you believe this?” And Martha answered the Master: “Yes, I have long believed that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the living God, even he who should come to this world.”

168:0.8 (1843.2) Jesus having inquired for Mary, Martha went at once into the house and, whispering to her sister, said, “The Master is here and has asked for you.” And when Mary heard this, she rose up quickly and hastened out to meet Jesus, who still tarried at the place, some distance

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애쓰다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따라갔다.

참석한 자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를 지독하게 대적하는 자였다. 이 때문에 **마르다**는 그를 혼자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며,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았다고 은밀하게 알려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그가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쾌한 사건도 피하고자 했다.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나가는 동안에, **마르다**는 일부러 집에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따라 나가서 뜻밖에도 **주님**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께 안내했고, **예수**를 만나자, **마리아**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혼은 연민으로 감동됐다.

애곡하던 자들은,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갔음을 알았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강한 신앙을 지키고 신성한 뜻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간곡한 훈계를 받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 물러나 있었다.

예수의 인간 정신은, **나사로** 및 상을 당한 자매들에 대한 애정과, 믿지 않으면서 살인할 작정인 이 **유대인**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애정 표현에 대한 경멸감과 모멸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다. 몇몇 거짓된 친구가 **나사로**를 위해 억지로 겉으로만 애곡하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 심히 분개했는데, 그런 거짓된 슬픔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랄한 증오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진심으로 애곡했는데, 그 가정과 진실한 친구 관계였기 때문이다.

1.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께서는 조객(弔客)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잠시 위로하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를 어디에 뒀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주님**은 슬픔에 가득 찬 두 자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따라오던 우호적인 **유대인**이 그의 눈물을 보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그들은 이윽고, 정원의 맨 끝에 약 30피트 가량 솟은 바위 언덕 내리받이 경사면의 작은 자연

from the house, where Martha had first met him. The friends who were with Mary, seeking to comfort her, when they saw that she rose up quickly and went out, followed her, supposing that she was going to the tomb to weep.

168:0.9 (1843.3) Many of those present were Jesus' bitter enemies. That is why Martha had come out to meet him alone, and also why she went in secretly to inform Mary that he had asked for her. Martha, while craving to see Jesus, desired to avoid any possible unpleasantness which might be caused by his coming suddenly into the midst of a large group of his Jerusalem enemies. It had been Martha's intention to remain in the house with their friends while Mary went to greet Jesus, but in this she failed, for they all followed Mary and so found themselves unexpectedly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168:0.10 (1843.4) Martha led Mary to Jesus, and when she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exclaiming, “If you ha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And when Jesus saw how they all grieved over the death of Lazarus, his soul was moved with compassion.

168:0.11 (1843.5) When the mourners saw that Mary had gone to greet Jesus, they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while both Martha and Mary talked with the Master and received further words of comfort and exhortation to maintain strong faith in the Father and complete resignation to the divine will.

168:0.12 (1843.6) The human mind of Jesus was mightily moved by the contention between his love for Lazarus and the bereaved sisters and his disdain and contempt for the outward show of affection manifested by some of these unbelieving and murderously intentioned Jews. Jesus indignantly resented the show of forced and outward mourning for Lazarus by some of these professed friends inasmuch as such false sorrow was associated in their hearts with so much bitter enmity toward himself. Some of these Jews, however, were sincere in their mourning, for they were real friends of the family.

1. AT THE TOMB OF LAZARUS

168:1.1 (1843.7) After Jesus had spent a few moments in comforting Martha and Mary, apart from the mourners, he asked them, “Where have you laid him?” Then Martha said, “Come and see.” And as the Master followed on in silence with the two sorrowing sisters, he wept. When the friendly Jews who followed after them saw his tears, one of them said: “Behold how he loved him.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By this time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family tomb, a small natural cave, or

동굴에 마련된 가족 묘 앞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왜 울었는지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인격화된 조울사**의 정신 속에 있는 기록 그대로, 인간 감정과 신성한 사고(思考)의 혼합된 등록 사항을 찾아봤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 표현의 실제 원인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때 그의 정신 속에 지나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감정과 생각 때문에 **예수**께서 울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자 한다:

1.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심어리고 슬픈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형제를 잃은 이 자매들에게 정말로 깊은 인간 애정을 느꼈다.

2. 그는 많은 조객이 혹은 진심에서 혹은 가장 하면서 나타남으로 인해, 그의 정신 속에 혼란이 왔다. 그는 애통함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분개했다. 그는 그 자매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신자의 생존에 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알았다. 이런 모순되는 감정들이,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왜 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3. 그는 **나사로**를 필사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진실로 망설였다. 그의 자매들은 그를 정말로 필요로 했지만, **예수**께서는 친구를 다시 불러내서 지독한 박해를 체험토록 하는 것을 슬퍼했는데, **사람의 아들**의 신성한 능력이 모든 예중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로, **나사로**가 이런 박해를 견뎌야 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흥미롭고 교훈적인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는데: 이 진술이 비록 인간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전개될지라도, 매우 흥미로운 부가적 효과가 있다. 심부름꾼이 일요일에 **예수**께 가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음을 말씀 드렸고, **예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 반면, 그가 직접 **베다니**에 갔을 때에는, 심지어 그 자매들에게 “너희가 그를 어디 뒀느냐?”고 질문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제한된 인간 정신의 지식을 따랐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그랬더라도, 우주의 기록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사고 조울사**에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행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의 **인격화된 조울사**가 명령했음과, 이 명령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바로 15분 전에 기록됐음을 보여준다.

예수의 신성한 정신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게 될 것을, 그가 죽기 전에도 알았을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여기 기록된 것들 뿐이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다수는, 그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비웃으면서 서로 말했

declivity, in the ledge of rock which rose up some thirty feet at the far end of the garden plot.

168:1.2 (1844.1) It is difficult to explain to human minds just why Jesus wept. While we have access to the registration of the combined human emotions and divine thoughts, as of record in the mind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we are not altogether certain about the real cause of these emotional manifestations. We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Jesus wept because of a number of thoughts and feelings which were going through his mind at this time, such as:

168:1.3 (1844.2) 1. He felt a genuine and sorrowful sympathy for Martha and Mary; he had a real and deep human affection for these sisters who had lost their brother.

168:1.4 (1844.3) 2. He was perturbed in his mind by the presence of the crowd of mourners, some sincere and some merely pretenders. He always resented these outward exhibitions of mourning. He knew the sisters loved their brother and had faith in the survival of believers. These conflicting emotions may possibly explain why he groaned as they came near the tomb.

168:1.5 (1844.4) 3. He truly hesitated about bringing Lazarus back to the mortal life. His sisters really needed him, but Jesus regretted having to summon his friend back to experience the bitter persecution which he well knew Lazarus would have to endure as a result of being the subject of the greatest of all demonstrations of the divine power of the Son of Man.

168:1.6 (1844.5) And now we may relate an interesting and instructive fact: Although this narrative unfolds as an apparently natural and normal event in human affairs, it has some very interesting side lights. While the messenger went to Jesus on Sunday, telling him of Lazarus's illness, and while Jesus sent word that it was “not to the death,” at the same time he went in person up to Bethany and even asked the sisters, “Where have you laid him?” Even though all of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Master was proceeding after the manner of this life and in accordance with the limited knowledge of the human mind, nevertheless, the records of the universe reveal that Jesus' Personalized Adjuster issued orders for the indefinite detention of Lazarus's Thought Adjuster on the planet subsequent to Lazarus's death, and that this order was made of record just fifteen minutes before Lazarus breathed his last.

168:1.7 (1844.6) Did the divine mind of Jesus know, even before Lazarus died, that he would raise him from the dead? We do not know. We know only what we are herewith placing on record.

168:1.8 (1844.7) Many of Jesus' enemies were inclined to sneer at his manifestations of affection, and they said among themselves: “If he thought so

다: “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했다면, **베다니**에 오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래 머물렀단 말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그렇다면, 어찌하여 소중한 친구를 구해주시지 않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갈릴리**의 낯선 자들을 치유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예수**의 교훈과 업적을 조롱하고 무시했다.

그리하여, 이 목요일 오후 두 시 반쯤에, **네바돈**의 **미가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것과 관련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공연을 하려고,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무대 설치가 완료됐으며, 이것은 그가 몸으로 육신화{肉身化}한 동안에 보여준 신성한 능력 중에서 가장 큰 연출이었는데, 자신의 부활의 경우는 필사자 장막의 묶임에서 벗어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계층의 천상의 존재가, 무엇이 일어날지 가슴 설레면서,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의 지시에 따라, 사랑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가브리엘**의 지휘 하에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기다리면서 바로 옆에 현존해 있음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작은 무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돌을 치우라”고 명령했을 때, 모여 있는 천상의 무리는 **나사로**를 그의 필사자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키는 연극을 상연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 부활 방식을 이행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이것은 필사 피조물이 모른시아 형태로 부활되는 통상적 기법을 훨씬 뛰어넘고, 더 많은 천상의 인격체와 훨씬 더 큰 우주 설비 조직체를 필요로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 치우라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상반되는 여러 감정으로 가득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희망했지만, **마르다**는 어느 정도 동생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반면, **나사로**가 혹시 **예수**와 사도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돼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더 걱정했다. **마르다**가 말했다: “돌을 꼭 치워야만 됩니까? 내 형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으므로, 몸이 이미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돌을 왜 치우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아마 **예수**께서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마르다**는 차분하지 못했고, 그 태도는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이 돌을 굴려서 치우기를 주저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애당초 너희에게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도착한 후에도, 너희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얼마나 더 있어야 믿고 순종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자진해서 나선 이웃

much of this man, why did he tarry so long before coming to Bethany? If he is what they claim, why did he not save his dear friend? What is the good of healing strangers in Galilee if he cannot save those whom he loves?” And in many other ways they mocked and made light of the teachings and works of Jesus.

168:1.9 (1844.8) And so, on this Thursday afternoon at about half past two o'clock, was the stage all set in this little hamlet of Bethany for the enactment of the greatest of all works connected with the earth ministry of Michael of Nebadon,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divine power during his incarnation in the flesh, since his own resurrection occurred after he had been liberated from the bonds of mortal habitation.

168:1.10 (1845.1) The small group assembled before Lazarus's tomb little realized the presence near at hand of a vast concourse of all orders of celestial beings assembled under the leadership of Gabriel and now in waiting, by direc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vibrating with expectancy and ready to execute the bidding of their beloved Sovereign.

168:1.11 (1845.2) When Jesus spoke those words of command, “Take away the stone,”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made ready to enact the drama of the resurrection of Lazarus in the likeness of his mortal flesh. Such a form of resurrection involves difficulties of execution which far transcend the usual technique of the resurrection of mortal creatures in morontia form and requires far more celestial personalities and a far greater organization of universe facilities.

168:1.12 (1845.3) When Martha and Mary heard this command of Jesus directing that the stone in front of the tomb be rolled away, they were filled with conflicting emotions. Mary hoped that Lazarus was to be raised from the dead, but Martha, while to some extent sharing her sister's faith, was more exercised by the fear that Lazarus would not be presentable, in his appearance, to Jesus, the apostles, and their friends. Said Martha: “Must we roll away the stone? My brother has now been dead four days, so that by this time decay of the body has begun.” Martha also said this because she was not certain as to why the Master had requested that the stone be removed; she thought maybe Jesus wanted only to take one last look at Lazarus. She was not settled and constant in her attitude. As they hesitated to roll away the stone, Jesus said: “Did I not tell you at the first that this sickness was not to the death? Have I not come to fulfill my promise? And after I came to you, did I not say that, if you would only believe, you should see the glory of God? Wherefore do you doubt? How long before you will believe and obey?”

168:1.13 (1845.4)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도들이 무덤 입구에서 돌을 밀어 굴러 냈다.

유대인은 대개, 죽음의 천사의 칼 끝에 있는 쓸개즙 방울이 셋째 날이 끝날 때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고 믿었다. 그들은, 셋째 날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혼이 무덤 주위를 돌면서 죽은 육신을 다시 소생시키려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혼이 넷째 날 동 트기 전에, 죽은 영들의 거주지로 이미 가버렸다고 철저히 믿었다.

죽은 자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의 영의 이탈 {離脫}에 관한 이런 믿음과 견해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려 했었는지 나중에 듣게 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한 그분이 친히 작용함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한 확실한 경우임을 확인시키기에 도움이 됐다.

2. 나사로의 부활

무덤 앞에 서있던 45명쯤 되는 이 사람들은, 세마포 형겔에 싸여, 동굴 무덤 오른편 아래쪽 선반 위에 놓인, **나사로**의 형체를 어렵듯이 볼 수 있었다. 이 땅의 피조물이 거의 숨죽인 채 서 있는 동안, 천상의 존재들로 이뤄진 거대한 무리는, 지휘자인 **가브리엘**이 명령을 내릴 때, 행동 개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각자 준비된 자리에 위치했다.

예수께서는 위를 바라보며 말씀했다: “**아버지**여, 내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알지만,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림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에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외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켜보는 이 인간 참관인들은 꿈쩍 안하고 있었지만, 방대한 천상의 무리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한결같은 행동으로 움직였다. 이 땅의 시간으로 꼭 12초 후에, 지금까지 생명이 없었던 **나사로**의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누워 있던 돌 선반 끝에 걸터앉았다. 그의 몸은 시신을 싸는 천으로 동여 있었고, 얼굴은 형겔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서 --살아서-- 일어서자, “그를 풀어줘서 다닐 수 있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사도들과 **마르다** 및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집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

his apostles, with the assistance of willing neighbors, laid hold upon the stone and rolled it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168:1.14 (1845.5) It was the common belief of the Jews that the drop of gall on the point of the sword of the angel of death began to work by the end of the third day, so that it was taking full effect on the fourth day. They allowed that the soul of man might linger about the tomb until the end of the third day, seeking to reanimate the dead body; but they firmly believed that such a soul had gone on to the abode of departed spirits ere the fourth day had dawned.

168:1.15 (1845.6) These belief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ead and the departure of the spirits of the dead served to make sure, in the minds of all who were now present at Lazarus's tomb and subsequently to all who might hear of what was about to occur, that this was really and truly a case of the raising of the dead by the personal working of one who declared he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2. THE RESURRECTION OF LAZARUS

168:2.1 (1845.7) As this company of some forty-five mortals stood before the tomb, they could dimly see the form of Lazarus, wrapped in linen bandages, resting on the right lower niche of the burial cave. While these earth creatures stood there in almost breathless silence, a vast host of celestial beings had swung into their places preparatory to answering the signal for action when it should be given by Gabriel, their commander.

168:2.2 (1846.1)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aid: “Father, I am thankful that you heard and granted my request. I kno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because of those who stand here with me, I thus speak with you,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nto the world, and that they may know that you are working with me in that which we are about to do.” And when he had prayed,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168:2.3 (1846.2) Though these human observers remained motionless, the vast celestial host was all astir in unified action in obedience to the Creator's word. In just twelve seconds of earth time the hitherto lifeless form of Lazarus began to move and presently sat up on the edge of the stone shelf whereon it had rested. His body was bound about with grave cloths, and his face was covered with a napkin. And as he stood up before them — alive — Jesus said, “Loose him and let him go.”

168:2.4 (1846.3) All, save the apostles, with Martha and Mary, fled to the house. They were pale with

려서 창백한 얼굴이 됐다. 더러는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으로 서둘러 떠났다.

나사로는 예수와 사도들에게 인사했고,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자신이 왜 입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원에서 깨났는지 물었다. 마르다가 나사로에게 그가 죽었고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예수와 사도들은 한 쪽에 모여 있었다. 마르다는 그가 일요일에 죽었다가 목요일에 다시 살아났음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가 죽음 속에 잠든 후에는 시간 의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이 지방우주에서 동일한 부류 가운데 우두머리인 예수의 인격화된 조울사는, 전에 나사로에 속했다가 지금은 대기중 {待期中}이던 조울사에게, 이제 부활된 사람의 정신과 혼에 다시 들어가라고 명했다.

그러자 **나사로는** 자매들과 함께 **예수**께 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 “**애야, 더 영화로운 형태로 부활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네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했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서 이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도록 하자.**”

그들이 집을 향해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한 필사 피조물이 죽었던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된, **유란시아**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 {事例}를 기록하면서, 잠시 쓰임받기 위해 모였던 하늘의 무리로 구성된 특별한 집단들을 해산시켰다.

나사로는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거의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아팠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전혀 의식이 없었으므로, 그는 무덤에 있던 이 나흘 동안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었다. 죽음으로 인해 잠든 자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를 더욱 배척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전에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다. 많은 남녀가 **나사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베다니**로 갔으며, **바리새인**은 놀라고 당황하여, 새로 발생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서둘러 **산헤드린**을 소집했다.

3. 산헤드린 회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람에 대한 증거가, 하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의 신앙을 굳

fright and overcome with astonishment. While some tarried, many hastened to their homes.

168:2.5 (1846.4) Lazarus greeted Jesus and the apostles and asked the meaning of the grave cloths and why he had awakened in the garden. Jesus and the apostles drew to one side while Martha told Lazarus of hi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She had to explain to him that he had died on Sunday and was now brought back to life on Thursday, inasmuch as he had had no consciousness of time since falling asleep in death.

168:2.6 (1846.5) As Lazarus came out of the tomb,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now chief of his kind in this local universe, gave command to the former Adjuster of Lazarus, now in waiting, to resume abode in the mind and soul of the resurrected man.

168:2.7 (1846.6) Then went Lazarus over to Jesus and, with his sisters, knelt at the Master's feet to give thanks and offer praise to God. Jesus, taking Lazarus by the hand, lifted him up, saying: "My son, what has happened to you will also be experienced by all who believe this gospel except that they shall be resurrected in a more glorious form. You shall be a living witness of the truth which I spoke —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But let us all now go into the house and partake of nourishment for these physical bodies."

168:2.8 (1846.7) As they walked toward the house, Gabriel dismissed the extra groups of the assembled heavenly host while he made record of the first instance on Urantia, and the last, where a mortal creature had been resurrected in the likeness of the physical body of death.

168:2.9 (1846.8) Lazarus could hardly comprehend what had occurred. He knew he had been very sick, but he could recall only that he had fallen asleep and been awakened. He was never able to tell anything about these four days in the tomb because he was wholly unconscious. Time is nonexistent to those who sleep the sleep of death.

168:2.10 (1846.9) Though many believed in Jesus as a result of this mighty work, others only hardened their hearts the more to reject him. By noon the next day this story had spread over all Jerusalem. Scores of men and women went to Bethany to look upon Lazarus and talk with him, and the alarmed and disconcerted Pharisees hastily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that they might determine what should be done about these new developments.

3. MEETING OF THE SANHEDRIN

168:3.1 (1847.1) Even though the testimony of this man raised from the dead did much to consolidate

게 해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관리들의 태도에는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그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결정을 촉진시켰다.

다음 날, 금요일 한 시에, **산헤드린**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더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토론과 날카로운 논쟁이 두 시간 이상 있는 후에, **예수**가 전체 **이스라엘**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모든 관례 {判例}를 무시하고, 재판 없이 **산헤드린**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도록 해서, 그를 즉시 죽이자는 제안을 어떤 **바리새인**이 했다.

유대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엄 있는 기관은,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다른 여러 가지 비난으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체포하여 재판하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선포했다. 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기는 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산헤드린**이 재판하기도 전에 죽이자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전대미문의 조처가 제안되자, 열네 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한꺼번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 사퇴자들은 두 주일까지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날 **산헤드린**을 그만둔 이 열네 명의 집단은 다시는 협의회에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이 사퇴자들이 처리됐을 때, 다섯 명의 다른 의원도 쫓겨났는데, 이들이 **예수**에 대해 친근한 태도를 보인다고 그 동료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이 열아홉 명이 축출된 뒤에, **산헤드린**은 거의 전원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예수**를 재판해서 유죄 {有罪} 평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다음 주에는 **산헤드린** 앞으로 출두하도록 **나사로**와 두 자매를 소환했다. 그들의 증언을 다 듣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대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의 진행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했음에도, 이 사건은 물론 **예수**께서 행한 다른 모든 이적도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 탓이며, **예수**도 그와 한 패인 것으로 결의했다고 기록했다.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던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그 일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모든 일반인이 곧 그를 믿으리라고 확신했으며; 더욱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으므로, **로마** 당국자들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했던,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을 **산헤드린** 앞에서 처음 발

the faith of the mass of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had little or no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religious leaders and rulers at Jerusalem except to hasten their decision to destroy Jesus and stop his work.

168:3.2 (1847.2) At one o'clock the next day, Friday, the Sanhedrin met to deliberate further on the question, "What shall we do with Jesus of Nazareth?" After more than two hours of discussion and acrimonious debate, a certain Pharisee presented a resolution calling for Jesus' immediate death, proclaiming that he was a menace to all Israel and formally committing the Sanhedrin to the decision of death, without trial and in defiance of all precedent.

168:3.3 (1847.3) Time and again had this august body of Jewish leaders decreed that Jesus be apprehended and brought to trial on charges of blasphemy and numerous other accusations of flouting the Jewish sacred law. They had once before even gone so far as to declare he should die, but this was the first time the Sanhedrin had gone on record as desiring to decree his death in advance of a trial. But this resolution did not come to a vote since fourteen members of the Sanhedrin resigned in a body when such an unheard-of action was proposed. While these resignations were not formally acted upon for almost two weeks, this group of fourteen withdrew from the Sanhedrin on that day, never again to sit in the council. When these resignations were subsequently acted upon, five other members were thrown out because their associates believed they entertained friendly feelings toward Jesus. With the ejection of these nineteen men the Sanhedrin was in a position to try and to condemn Jesus with a solidarity bordering on unanimity.

168:3.4 (1847.4) The following week Lazarus and his sisters were summoned to appear before the Sanhedrin. When their testimony had been heard, no doubt could be entertained that Lazar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ough the transactions of the Sanhedrin virtually admitted the resurrection of Lazarus, the record carried a resolution attributing this and all other wonders worked by Jesus to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with whom Jesus was declared to be in league.

168:3.5 (1847.5) No matter what the source of his wonder-working power, these Jewish leaders were persuaded that, if he were not immediately stopped, very soon all the common people would believe in him; and further, that serious complications with the Roman authorities would arise since so many of his believers regarded him as the Messiah, Israel's deliverer.

168:3.6 (1847.6) It was at this same meeting of the Sanhedrin that Caiaphas the high priest first gave expression to that old Jewish adage, which he so

표했던 것도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음울한 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비록 **산헤드린**으로부터 경고받기는 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 작은 마을 **베스페이지**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계속 휴식을 취했다. 미리 협의했던 대로, **예수**와 사도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요일 아침 일찍 모였고, **베다니** 가족을 떠나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4. 기도에 대한 응답

베다니에서 **펠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은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으며, **주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 외에는,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했다. 그 문제는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며, 따라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 그들과 토론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비밀리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곧 닥치게 될 시련의 날을 위해 열 명을 준비시킬만한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도들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련해서 겪은 최근의 체험에 대해 토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음 속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베다니** 심부름꾼에게 한 “이 병으로는 정말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분명한 말씀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 질문을 되풀이해서 토의했다.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도는 **무한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유한한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과정은, 지식, 지혜, 그리고 유한세계의 속성들에 제한 받으며; 마찬가지로 응답도, 통찰력, 목적, 이상, 및 **무한자**의 특권에 좌우된다. 기도한 때부터 그에 따른 온전한 영적 응답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물질 현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목격할 수는 결코 없다.

2. 외견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비록 어떤 선한 이유로 인해 오래 연기되더라도, 지연되는 것이 더 나은 응답의 전조인 경우도 종종 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이미 열한 시간 전에 죽었다. 영적 세계의 뛰어난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응답, 즉 사람의 단순한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영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되는 경우 외에는, 어떤 진실된 기도도 응답이 거부되

many times repeated: “It is better that one man die, than that the community perish.”

168:3.7 (1847.7) Although Jesus had received warning of the doings of the Sanhedrin on this dark Friday afternoon, he was not in the least perturbed and continued resting over the Sabbath with friends in Bethpage, a hamlet near Bethany. Early Sunday morning Jesus and the apostles assembled, by prearrangement, at the home of Lazarus, and taking leave of the Bethany family, they started on their journey back to the Pella encampment.

4. THE ANSWER TO PRAYER

168:4.1 (1848.1) On the way from Bethany to Pella the apostles asked Jesus many questions, all of which the Master freely answered except those involving the details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uch problems were beyond the comprehension capacity of his apostles; therefore did the Master decline to discuss these questions with them. Since they had departed from Bethany in secret, they were alone. Jesus therefore embraced the opportunity to say many things to the ten which he thought would prepare them for the trying days just ahead.

168:4.2 (1848.2) The apostles were much stirred up in their minds and spent considerable time discussing their recent experiences as they were related to prayer and its answering. They all recalled Jesus' statement to the Bethany messenger at Philadelphia, when he said plainly, “This sickness is not really to the death.” And yet, in spite of this promise, Lazarus actually died. All that day, again and again, they reverted to the discussion of this question of the answer to prayer.

168:4.3 (1848.3) Jesus' answers to their many quest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68:4.4 (1848.4) 1. Prayer is an expression of the finite mind in an effort to approach the Infinite. The making of a prayer must, therefore, be limited by the knowledge, wisdom, and attributes of the finite; likewise must the answer be conditioned by the vision, aims, ideals, and prerogatives of the Infinite. There never can be observed an unbroken continuity of material phenomena between the making of a prayer and the reception of the full spiritual answer thereto.

168:4.5 (1848.5) 2. When a prayer is apparently unanswered, the delay often betokens a better answer, although one which is for some good reason greatly delayed. When Jesus said that Lazarus's sickness was really not to the death, he had already been dead eleven hours. No sincere prayer is denied an answer except when the superior viewpoint of the spiritual world has devised a better answer, an answer which meets

지 않는다.

3. 시간세계에서 하는 기도는, 신앙으로 표현되고 영으로 드러질 때, 종종 너무 방대하고 총괄적이어서 오직 영원한 세월에서만 응답될 수 있으며; 유한한 기원(祈願)이 때로는 **무한자**의 통제가 너무 많이 필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응답이 오랫동안 연기되기도 하며; 신앙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응답이 **낙원**에서만 이뤄질 수도 있다.

4. 필사 정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동일한 기도하는 정신이 오직 불멸의 상태를 달성한 후에만 받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본질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 존재의 기도는, 그런 개인의 상태가 영 수준으로 진보했을 때에만 응답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5.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몰라서 왜곡되고 미신적 습관으로 인해 변형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하는 영 존재들이 그런 기도를 너무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이 도달했을 때, 간구했던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6. 모든 참된 기도는 영적 존재들에게 제출되며, 그런 모든 간구는 영적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며, 그런 응답은 모두 영적 실체로 이뤄져야 한다. 영적 존재들은 물질 존재의 영이 간구한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 물질 존재는, “영으로 기도할” 때에만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7. 영으로 탄생되고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의 진실한 신앙은, 너희의 간구에 대해 최상의 지혜에 따라 응답하도록,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받는 존재들을 항상 행동하게 한다고 너희의 신앙이 묘사하는 그 신성한 사랑에 따라 응답 하도록, 너희의 기도를 듣는 그 존재들에게 모든 권한을 미리 실제로 양도했음을 내포한다.

8.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 그럴 권리를 항상 가지며; 더 우세한 부모의 지혜가, 영적으로 상승하는 다음 단계까지 아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유예, 변경, 분리, 능가, 또는 연기하라고 명령할 때, 그 부모에게는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항상 있다.

9.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간청한 것에 대해 응답 받을 것을 의심치 마라. 이 응답은 어딘가에 저장될 것이며, 너희가 이 세계에서 또는 다른 세계들에서 실제 시공우주 달성을 장차 영적 수준에서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뤄진 후에는, 전에 간구했었지만 때가 맞지 않았던 기도에 대한 오래 기다려온 응답을 인식하고 꺼내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etition of the spirit of man as contrasted with the prayer of the mere mind of man.

168:4.6 (1848.6) 3. The prayers of time, when indited by the spirit and expressed in faith, are often so vast and all-encompassing that they can be answered only in eternity; the finite petition is sometimes so fraught with the grasp of the Infinite that the answer must long be postponed to await the creation of adequate capacity for receptivity; the prayer of faith may be so all-embracing that the answer can be received only on Paradise.

168:4.7 (1848.7) 4. The answers to the prayer of the mortal mind are often of such a nature that they can be received and recognized only after that same praying mind has attained the immortal state. The prayer of the material being can many times be answered only when such an individual has progressed to the spirit level.

168:4.8 (1848.8) 5. The prayer of a God-knowing person may be so distorted by ignorance and so deformed by superstition that the answer thereto would be highly undesirable. Then must the intervening spirit beings so translate such a prayer that, when the answer arrives, the petitioner wholly fails to recognize it as the answer to his prayer.

168:4.9 (1848.9) 6. All true prayers are addressed to spiritual beings, and all such petitions must be answered in spiritual terms, and all such answers must consist in spiritual realities. Spirit beings cannot bestow material answers to the spirit petitions of even material beings. Material beings can pray effectively only when they “pray in the spirit.”

168:4.10 (1849.1) 7. No prayer can hope for an answer unless it is born of the spirit and nurtured by faith. Your sincere faith implies that you have in advance virtually granted your prayer hearers the full right to answer your petitions in accordance with that supreme wisdom and that divine love which your faith depicts as always actuating those beings to whom you pray.

168:4.11 (1849.2) 8. The child is always within his rights when he presumes to petition the parent; and the parent is always within his parental obligations to the immature child when his superior wisdom dictates that the answer to the child's prayer be delayed, modified, segregated, transcended, or postponed to another stage of spiritual ascension.

168:4.12 (1849.3) 9. Do not hesitate to pray the prayers of spirit longing; doubt not that you shall receive the answer to your petitions. These answers will be on deposit, awaiting your achievement of those future spiritual levels of actual cosmic attainment, on this world or on others, whereon it will become possible for you to recognize and appropriate the long-awaited answers to your earlier but ill-timed petitions.

10. 영적으로 하는 참된 간구는 모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요청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시간과 공간에서 진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기도와 간구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는 체험에서, 시_공간 요인을 계속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68:4.13 (1849.4) 10. All genuine spirit-born petitions are certain of an answer. Ask and you shall receive. But you should remember that you are progressive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herefore must you constantly reckon with the time-space factor in the experience of your personal reception of the full answers to your manifold prayers and petitions.

5.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나사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던 그 주 {週}에, **산헤드린**이 그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베다니**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은,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과 호기심 많은 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는 중심지였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교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기로 결의하고, **예수**께서 행한 기적들 가운데 가장 정점 {頂點}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를 살려둠으로써, **예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증거 하도록 한다면, **예수**를 죽여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나사로**는 이미 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사로**는 자매들을 **베다니**에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으며,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쉬지도 못하면서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피신했다. **나사로**는 **아브넬**을 잘 알았으며, 이곳에 있음으로써 사악한 **산헤드린**의 살인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땅을 처분한 후 곧, **베레아**에 있는 형제와 합류했다. 한편, **나사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재정 담당자가 됐다. **아브넬**이 **바울** 및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할 때, **나사로**는 강력하게 **아브넬**을 지지했으며, 젊었을 때 **베다니**에서 그를 죽게 했던 똑같은 병으로, 결국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5. WHAT BECAME OF LAZARUS

168:5.1 (1849.5) Lazarus remained at the Bethany home, being the center of great interest to many sincere believers and to numerous curious individuals, until the days of the crucifixion of Jesus, when he received warning that the Sanhedrin had decreed his death. The rulers of the Jews were determined to put a stop to the further spread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they well judged that it would be useless to put Jesus to death if they permitted Lazarus, who represented the very peak of his wonder-working, to live and bear testimony to the fact that Jesus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Already had Lazarus suffered bitter persecution from them.

168:5.2 (1849.6) And so Lazarus took hasty leave of his sisters at Bethany, fleeing down through Jericho and across the Jordan, never permitting himself to rest long until he had reached Philadelphia. Lazarus knew Abner well, and here he felt safe from the murderous intrigues of the wicked Sanhedrin.

168:5.3 (1849.7) Soon after this Martha and Mary disposed of their lands at Bethany and joined their brother in Perea. Meantime, Lazarus had become the treasurer of the church at Philadelphia. He became a strong supporter of Abner in his controversy with Paul and the Jerusalem church and ultimately died, when 67 years old, of the same sickness that carried him off when he was a younger man at Bethany.

제169편. 펠라에서 마지막 가르침

⇨ 168

유랜시아 책

170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69편
펠라에서 마지막 가르침

섹션

소개

1. 잃어버린 아들 비유
2. 영리한 청지기 비유
3. 부자와 거지
4. 아버지와 그의 나라

소개

3월 6일 월요일 늦은 저녁에,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펠라** 야영지에 도착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거기에 머문 마지막 주가 됐으며, 그는 대중을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설명하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에 무리에게 설교했고, 매일 밤에는, 야영지에 머무는 사도들 및 비교적 더 진보된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주님**께서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 야영지에도 전해졌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흥분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로, 사람의 상상력을 이처럼 자극하는 어떤 것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때, **예수**께서 이 짧은 한 주 동안 **펠라**에서 가르치기로 계획했던, 공공연한 천국 사역에서 둘째 단계가 최고 정점에 달했으며, 그 후에는 남쪽 **베레아**로 여행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週間)의 최종적이고 비참한 체험에 바로 임하게 됐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여러 혐의를 입안하고 기소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님**의 교훈을 배척했다:

1.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한다.

PAPER 169

LAST TEACHING AT PELLA

SECTIONS

Introduction

1. Parable of the Lost Son
2. Parable of the Shrewd Steward
3. The Rich Man and the Beggar
4. The Father and His Kingdom

INTRODUCTION

^{169:0.1 (1850.1)} LATE on Monday evening, March 6, Jesus and the ten apostles arrived at the Pella camp. This was the last week of Jesus' sojourn there, and he was very active in teaching the multitude and instructing the apostles. He preached every afternoon to the crowds and each night answered questions for the apostles and certain of the more advanced disciples residing at the camp.

^{169:0.2 (1850.2)} Word regarding the resurrection of Lazarus had reached the encampment two days before the Master's arrival, and the entire assembly was agog. Not since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had anything occurred which so aroused the imagination of the people. And thus it was at the very height of the second phase of the public ministry of the kingdom that Jesus planned to teach this one short week at Pella and then to begin the tour of southern Perea which led right up to the final and tragic experiences of the last week in Jerusalem.

^{169:0.3 (1850.3)} The Pharisees and the chief priests had begun to formulate their charges and to crystallize their accusations. They objected to the Master's teachings on these grounds:

- ^{169:0.4 (1850.4)} 1. He is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he receives the ungodly and even eats

2.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3. 그는 법률위반자다.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며, **이스라엘**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조롱했다.

4. 그는 마귀들과 결탁했다. 마귀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기적을 행한다.

with them.

169:0.5 (1850.5) 2. He is a blasphemer; he talks about God as being his Father and thinks he is equal with God.

169:0.6 (1850.6) 3. He is a lawbreaker. He heals disease on the Sabbath and in many other ways flouts the sacred law of Israel.

169:0.7 (1850.7) 4. He is in league with devils. He works wonders and does seeming miracles by the power of Beelzebub, the prince of devils.

1. 잃어버린 아들 비유

목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 대중에게 말씀했다. 이 설교 도중에, **주님**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관해 다시 이야기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탕한 아들에 관한 비유를 더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사무엘**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곧 진리를 탐구하라고-- 훈계해 왔다. 그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동안에 **주**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길 잃고 헤매는 그 양을 발견하자, 그것을 어깨에 메어 친절하게 데리고 돌아와서 양 떼 속으로 다시 넣어줬다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너희에게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자, 선한 목자가 친구들을 부르면서, 잃었던 양을 발견한 것에 대해 함께 즐기라고 초대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 기뻐한다. 혼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을 더 많이 끌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임을 진심으로 말해왔다.

“너희가 회개한 후에, 그리고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참회한 행위의 결과로 신{神}이 너희를 받아들인다고 배워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증하겠는데,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너희를 용납하시며, 너희를 찾아내어 다시 양 무리에게로, 즉 영적 진보가 있는 아들신분의 천국으로 기뻐하면서 데려오라고, **아들**과 그 동역자들을 보내신다. 너희는 모두 길 잃은 양 같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는, 장식용 목걸이를 만들려고 은으로 된 열 개의 동전을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을 밝히고 집안을 열심히 쓸면서 잃

1. PARABLE OF THE LOST SON

169:1.1 (1850.8) On Thursday afternoon Jesus talked to the multitude about the “Grace of Salvation.” In the course of this sermon he retold the story of the lost sheep and the lost coin and then added his favorit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Said Jesus:

169:1.2 (1850.9) “You have been admonished by the prophets from Samuel to John that you should seek for God — search for truth. Always have they said,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And all such teaching should be taken to heart. But I have come to show you that, while you are seeking to find God, God is likewise seeking to find you. Many times have I told you the story of the good shepherd who left the ninety and nine sheep in the fold while he went forth searching for the one that was lost, and how, when he had found the straying sheep, he laid it over his shoulder and tenderly carried it back to the fold. And when the lost sheep had been restored to the fold, you remember that the good shepherd called in his friends and bade them rejoice with him over the finding of the sheep that had been lost. Again I say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the ninety and nine just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The fact that souls are lost only increases the interest of the heavenly Father. I have come to this world to do my Father’s bidding, and it has truly been said of the Son of Man that he is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169:1.3 (1851.1) “You have been taught that divine acceptance comes after your repentance and as a result of all your works of sacrifice and penitence, but I assure you that the Father accepts you even before you have repented and sends the Son and his associates to find you and bring you, with rejoicing, back to the fold, the kingdom of sonship and spiritual progress. You are all like sheep which have gone astray, and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o are lost.

169:1.4 (1851.2) “And you should also remember the story of the woman who, having had ten pieces of silver made into a necklace of adornment, lost one

아버린 은 동전이 발견될 때까지 쉬지 않고 찾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그 여자는 잃었던 동전을 발견하자마자, 친구와 이웃을 불러,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양 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 앞에 항상 기쁨이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깊이 새겨두기 위해서이며, 구원을 필요로 하면서 서 있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찾아내는 데 도움 될 만한 모든 권세를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길 잃고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가며, 또한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도 한다. 양은 부지불식간에 길을 잃었으며; 동전은 시간이라는 먼지로 덮이고, 사람의 것들이 그 위에 쌓임으로써 감춰졌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부자 농부의 철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는데, 그 아들은 **고의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으로 갔으며, 거기서 고난당하게 됐다. 양들은 아무 의도 없이 방황하게 됐지만, 이 젊은이는 미리 계획하고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근심 걱정이 없고 무책임해서 항상 즐거운 시간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는 반면, 형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었다. 이윽고 이 두 형제가 서로 잘 지낼 수 없게 됐는데; 그들은 항상 다투고 언쟁했다. 작은 아들은,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게으르고 신뢰성이 없었으며; 큰 아들은, 침착하고 부지런한 반면 자기중심적이고 무뚝뚝하고 교만했다. 작은 아들은, 놀기를 좋아했지만 일하기는 피했으며; 큰 아들은, 일에 열심이었지만 잘 놀지 않았다. 이 두 형제의 불화가 너무 심해지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상속될 당신의 소유물 가운데 3분의 1을 저에게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 길을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으면 형 때문에 얼마나 불만스러워 하는지 알기에, 재산을 나눠서 작은 아들의 몫을 떼어 줬다.

"그 젊은이는 몇 주 후에 자기 돈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재미있으면서 돈을 벌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곧 모든 유산을 탕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허비했을 때, 그 지방에 오랫동안 기근이 닥쳤고, 그는 곤궁한 신세가 됐다. 그리하여 배고픔을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지방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고용됐는데, 그가 그를 돼지 키우는데 하나에게 고용됐는데, 그가 그를 돼지 키우는 옥수수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에게 아무 것이든지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piece, and how she lit the lamp and diligently swept the house and kept up the search until she found the lost piece of silver. And as soon as she found the coin that was lost, she called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that was lost.' So again I say, there is alway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and returns to the Father's fold. And I tell you this story to impress upon you that the Father and his Son go forth to search for those who are lost, and in this search we employ all influences capable of rendering assistance in our diligent efforts to find those who are lost, those who stand in need of salvation. And so, while the Son of Man goes out in the wilderness to seek for the sheep gone astray, he also searches for the coin which is lost in the house. The sheep wanders away, unintentionally; the coin is covered by the dust of time and obscured by the accumulation of the things of men.

169:1.5 (1851.3) "And now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a thoughtless son of a well-to-do farmer who deliberately left his father's house and went off into a foreign land, where he fell into much tribulation. You recall that the sheep strayed away without intention, but this youth left his home with premeditation. It was like this:

169:1.6 (1851.4) "A certain man had two sons; one, the younger, was lighthearted and carefree, always seeking for a good time and shirking responsibility, while his older brother was serious, sober, hard-working, and willing to bear responsibility. Now these two brothers did not get along well together; they were always quarreling and bickering. The younger lad was cheerful and vivacious, but indolent and unreliable; the older son was steady and industrious, at the same time self-centered, surly, and conceited. The younger son enjoyed play but shunned work; the older devoted himself to work but seldom played. This association became so disagreeable that the younger son came to his father and said: 'Father, give me the third portion of your possessions which would fall to me and allow me to go out into the world to seek my own fortune.' And when the father heard this request, knowing how unhappy the young man was at home and with his older brother, he divided his property, giving the youth his share.

169:1.7 (1851.5) "Within a few weeks the young man gathered together all his funds and set out upon a journey to a far country, and finding nothing profitable to do which was also pleasurable, he soon wasted all his inheritance in riotous living. And when he had spent all, there arose a prolonged famine in that country, and he found himself in want. And so, when he suffered hunger and his distress was great, he found employment with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the fields to feed swine. And the young

“어느 날, 그는 매우 배고프게 됐을 때,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께 고용된 많은 종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빵이 풍성한데, 나는 이 이국땅에서 돼지나 키우다가 굶주려 죽게 됐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다만 나를 고용된 종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몹시 슬퍼해 왔으며; 경솔하지만 명량한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다.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감동돼서 그를 만나러 뛰어 나갔으며, 자애롭게 환영하면서 그를 안고 입을 맞쳤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 그 아들은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그 아들이 고백을 다 마칠 수도 없었는데,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는 종들에게, ‘내가 보관해 둔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가 신을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아버지는, 발이 부르트고 기진맥진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하인들을 불렀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흥겹게 즐기도록 하자.’ 그들은 모두 아버지 곁에 모여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이 무렵에, 그들이 축하하고 있는 동안, 큰 아들이 들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뒷문으로 가서, 하인 가운데 하나를 불러내고, 이 모든 잔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종이 말했다: ‘오래도록 잃었던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오셔서 동생을 환영하시고 아버지 집에 다시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형은 이 말을 듣자, 너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동생을 환영한 것에 대해 큰 아들이 분개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도,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man would fain have filled himself with the husks which the swine ate, but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169:1.8 (1852.1) “One day, when he was very hungry, he came to himself and said: ‘How many hired servants of my father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while I perish with hunger, feeding swine off here in a foreign country!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only be willing to make me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when the young man had reached this decision, he arose and started out for his father’s house.

169:1.9 (1852.2) “Now this father had grieved much for his son; he had missed the cheerful, though thoughtless, lad. This father loved this son and was always on the lookout for his return, so that on the day he approached his home, even while he was yet afar off, the father saw him and, being moved with loving compassion, ran out to meet him, and with affectionate greeting he embraced and kissed him. And after they had thus met, the son looked up into his father’s tearful face and said: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I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a son’ — but the lad did not find opportunity to complete his confession because the overjoyed father said to the servants who had by this time come running up: ‘Bring quickly his best robe, the one I have saved, and put it on him and put the son’s ring on his hand and fetch sandals for his feet.’

169:1.10 (1852.3) “And then, after the happy father had led the footsore and weary lad into the house, he called to his servants: ‘Bring on the fatt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make merry,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all gathered about the father to rejoice with him over the restoration of his son.

169:1.11 (1852.4) “About this time, while they were celebrating, the elder son came in from his day’s work in the field, and as he drew near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the dancing. And when he came up to the back door, he called out one of the servants and inquired as to the meaning of all this festivity. And then said the servant: ‘Your long-lost brother has come h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d calf to rejoice over his son’s safe return. Come in that you also may greet your brother and receive him back into your father’s house.’

169:1.12 (1852.5) “But when the older brother heard this, he was so hurt and angry he would not go into the house. When his father heard of his resentment of the welcome of his younger brother, he went out to entreat him. But the older son would not yield to his father’s persuasion. He answered his father, saying: ‘Here these many years have I served you, never transgressing the least of your commands, and yet you never gave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남아서 보살펴 드렸는데, 내 충성스런 봉사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서둘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놈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큰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언제라도 새끼 양을 잡아서 네 친구들과 흥겹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흥겹게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애야, 네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과;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나라로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청중에게 심어주기 위해 제시한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것 가운데 하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잊지 않으시며, 양떼의 참 목자인 **아들**과 함께 나가서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혼동되거나, 좌절당하거나, 인생의 물질적 염려와 축적물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잃어버린 **아들**, 즉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복귀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가르치던 여러 해 동안, **예수**께서 이 방탕한 **아들**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는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의 이웃됨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좋아했다.

2. 영리한 청지기 비유

어느 날 저녁에, **열심당 시몬**이 **예수**의 어떤 말씀에 대해 논평했다: “**주님**,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기에 능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 가운데 다수가 자기 세대에는 천국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는 사업상 동역자들과 거래하는 데 매우 영리했

me even a kid that I might make merry with my friends. I have remained here to care for you all these years, and you never made rejoicing over my faithful service, but when this your son returns, having squandered your substance with harlots, you make haste to kill the fatted calf and make merry over him.’

169:1.13 (1852.6) “Since this father truly loved both of his sons, he tried to reason with this older one: ‘But, my son, you have all the while been with me, and all this which I have is yours. You could have had a kid at any time you had made friends to share your merriment. But it is only proper that you should now join with me in being glad and merry because of your brother’s return. Think of it, my son, your brother was lost and is found; he has returned alive to us!’”

169:1.14 (1853.1) This was one of the most touching and effective of all the parables which Jesus ever presented to impress upon his hearers the Father’s willingness to receive all who seek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169:1.15 (1853.2) Jesus was very partial to telling these three stories at the same time. He presented the story of the lost sheep to show that, when men unintentionally stray away from the path of life, the Father is mindful of such *lost* ones and goes out, with his Sons, the true shepherds of the flock, to seek the lost sheep. He then would recite the story of the coin lost in the house to illustrate how thorough is the divine *searching* for all who are confused, confounded, or otherwise spiritually blinded by the material cares and accumulations of life. And then he would launch forth into the telling of this parable of the lost son, the reception of the returning prodigal, to show how complete is the *restoration* of the lost son into his Father’s house and heart.

169:1.16 (1853.3) Many, many times during his years of teaching, Jesus told and retold this story of the prodigal son. This parable and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were his favorite means of teaching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neighborliness of man.

2. PARABLE OF THE SHREWD STEWARD

169:2.1 (1853.4) One evening Simon Zelotes, commenting on one of Jesus’ statements, said: “Master, what did you mean when you said today that many of the children of the world are wiser in their generation than ar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since they are skillful in making friends with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Jesus answered:

169:2.2 (1853.5) “Some of you, before you entered the kingdom, were very shrewd in dealing with your business associates. If you were unjust and often

다. 너희가 불의했고 때로는 불공정했더라도,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에만 일편단심으로 매달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신중했고 앞을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자신이 지금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만큼 너희의 현재 삶을 천국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늘에 쌓아 놓은 보물을 장차 즐길 것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용됐을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얻고자 했거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청지기요 형제관계의 종인데도, 어찌하여 천국을 위해 혼을 얻는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모두, 영리하지만 불의한 한 청지기를 둔 어떤 부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손님을 위협해서 자기 몫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산을 자기가 사용하고 허비했다. 이 모든 사실이 마침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가 청지기를 앞에 불러 그 소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면서, 즉시 청지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주인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불충한 청지기가 속으로 말했다: ‘내가 청지기직을 잃게 됐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뒀을 때, 내 주인과 거래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겠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부르면서, 첫 사람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름 일 백 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청지기는, ‘기록된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서 오십이라고 고치라’고 했다. 또 다른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는 ‘밀 백 가마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청지기는,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고 쓰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빚진 자에게도 이렇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이 청지기는, 그 청지기직에서 물러난 후에 자기를 위한 친구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 그의 주, 즉 주인조차,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서, 불충한 청지기가 장차의 빈곤과 불운에 대비한, 적어도 그 태도에서는 현명함을 보여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세상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빛의 자녀보다 더 현명함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의로운 세력들과 영원한 친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거처{居處}에서 기쁘게 영접 받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단언하겠는데, 적은 것에 충실한 사람

unfair, you were nonetheless prudent and farseeing in that you transacted your business with an eye single to your present profit and future safety. Likewise should you now so order your lives in the kingdom as to provide for your present joy while you also make certain of your future enjoyment of treasures laid up in heaven. If you were so diligent in making gains for yourselves when in the service of self, why should you show less diligence in gaining souls for the kingdom since you are now servants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stewards of God?

169:2.3 (1853.6) “You may all learn a lesson from the story of a certain rich man who had a shrewd but unjust steward. This steward had not only oppressed his master’s clients for his own selfish gain, but he had also directly wasted and squandered his master’s funds. When all this finally came to the ears of his master, he called the steward before him and asked the meaning of these rumors and required that he should give immediate accounting of his stewardship and prepare to turn his master’s affairs over to another.

169:2.4 (1853.7) “Now this unfaithful steward began to say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I am about to lose this stewardship? I have not the strength to dig; to beg I am ashamed. I know what I will do to make certain that, when I am put out of this stewardship, I will be welcomed into the houses of all who do business with my master.’ And then, calling in each of his lord’s debtors,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He answered, ‘A hundred measures of oil.’ Then said the steward, ‘Take your wax board bond, sit down quickly, and change it to fifty.’ Then he said to another debtor, ‘How much do you owe?’ And he replie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Then said the steward, ‘Take your bond and write fourscore.’ And this he did with numerous other debtors. And so did this dishonest steward seek to make friends for himself after he would be discharged from his stewardship. Even his lord and master, when he subsequently found out about this, was compelled to admit that his unfaithful steward had at least shown sagacity in the manner in which he had sought to provide for future days of want and adversity.

169:2.5 (1854.1) “And it is in this way that the sons of this world sometimes show more wisdom in their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an do the children of light. I say to you who profess to be acquiring treasure in heaven: Take lessons from those who make friends with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and likewise so conduct your lives that you make eternal friendship with the forces of righteousness in order that, when all things earthly fail, you shall be joyfully received into the eternal habitations.

169:2.6 (1854.2) “I affirm that he who is faithful in little

은 많은 것에도 충실할 것이며,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의 일에서 장래를 대비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충실성과 현명함에서 하늘 나라의 참된 재산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신뢰 받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충실한 은행가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어떤 바보가 너희 이름으로 많은 재물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하나에 집착하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재산 획득에 혈안이 돼있었으므로,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대적하는 이 청중은 **예수**를 쓸데없는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대적들과 토의하기를 거절했다. **바리새인**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의 큰 소리 때문에 많은 대중이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으며;그들이 서로 말다툼하기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물러나서, 잠을 자기 위해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will also be faithful in much, while he who is unrighteous in little will also be unrighteous in much. If you have not shown foresight and integrity in the affairs of this world, how can you hope to be faithful and prudent when you are trusted with the stewardship of the true riches of the heavenly kingdom? If you are not good stewards and faithful bankers,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be foolish enough to give you great treasure in your own name?

169:2.7 (1854.3) “And again I assert that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one while he despises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169:2.8 (1854.4) When the Pharisees who were present heard this, they began to sneer and scoff since they were much given to the acquirement of riches. These unfriendly hearers sought to engage Jesus in unprofitable argumentation, but he refused to debate with his enemies. When the Pharisees fell to wrangling among themselves, their loud speaking attracted large numbers of the multitude encamped thereabouts; and when they began to dispute with each other, Jesus withdrew, going to his tent for the night.

3. 부자와 거지

모임이 너무 시끄러워지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도권을 잡고 말했다:“형제들이여, 여러 분끼리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그의 말씀을 잘 숙고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은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나실인**의 우화를 듣지 못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한 재산을 탐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비유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우리 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된 이 비유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늘 나라의 새로운 빛을 납득할 때까지, 여러분은 모두 이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디브스**라는 이름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주색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매일 화려하게 꾸미며 환락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출입문 곁에 머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며;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윽고 거지가 죽게 됐고, 천사들이 그를 데려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도 죽어서 화려하고 호화롭게 매장됐다. 이 세상을 떠나자 부자는 **지옥**에서 깨어났고, 고통당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러자 **디브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형벌로

3. THE RICH MAN AND THE BEGGAR

169:3.1 (1854.5) When the meeting became too noisy, Simon Peter, standing up, took charge, saying: “Men and brethren, it is not seemly thus to dispute among yourselves. The Master has spoken, and you do well to ponder his words. And this is no new doctrine which he proclaimed to you. Have you not also heard the allegory of the Nazarites concerning the rich man and the beggar? Some of us heard John the Baptist thunder this parable of warning to those who love riches and covet dishonest wealth. And while this olden parable is not according to the gospel we preach, you would all do well to heed its lessons until such a time as you comprehend the new light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story as John told it was like this:

169:3.2 (1854.6)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named Dives, who, being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lived in mirth and splendor every day. And there was a certain beggar named Lazarus, who was laid at this rich man's gate, covered with sores and desiring to be fed with the crumbs which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yes,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away by the angels to rest in Abraham's bosom. And then, presently, this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with great pomp and regal splendor. When the rich man departed from this world, he waked up in Hades, and finding himself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크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즐겼지만, **나사로**는 한결같이 불행을 체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 너는 고통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 받는다. 게다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네게로 갈 수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디브스**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게 형제가 다섯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증거 해 주셔서 이 고통스런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애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디브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었던 자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이 **모세**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실인** 동우회의 이 우화를 **베드로**가 마치자, 인파가 조용해졌으므로, **안드레**가 일어나서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해산시켰다. 사도와 제자들이 **디브스**와 **나사로**의 우화에 관해 **예수**께 종종 질문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4. 아버지와 그의 나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립을 선포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아니심**을 사도들에게 설명하기에 항상 힘들어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가르칠 때, **유란시아** 사람들은 대개 여러 나라 정부의 왕과 황제에 익숙했으며, **유대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고대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를 하늘 나라라고, 이 형제관계의 영우두머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왕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가 사도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또는 그들의 형님으로 표현했다. 그는 추종자 전부를 인류의 봉사자로, 그리고 천국 복음의 사자{使者}로 묘사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격과 속성들에 대해 사도들에게 조직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실체이심을 증거하려고 논쟁을 제시함으로써 자기를 비하한 적이 결코 없었다.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모두, 그와

and beheld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And then Dives cried alou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over Lazarus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to cool my tongue, for I am in great anguish because of my punishment.’ And then Abraham replied: ‘My son, you should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enjoyed the good things while Lazarus in like manner suffered the evil. But now all this is changed, seeing that Lazarus is comforted while you are tormented. And beside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so that we cannot go to you, neither can you come over to us.’ Then said Dives to Abraham: ‘I pray you send Lazarus back to my father’s house, inasmuch as I have five brothers, that he may so testify as to prevent my brothers from coming to this place of torment.’ But Abraham said: ‘My son,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And then answered Dives: ‘No, No, Father Abraham! but if one go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And then said Abraham: ‘If they hear not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even if one were to rise from the dead.’”

169:3.3 (1855.1) After Peter had recited this ancient parable of the Nazarite brotherhood, and since the crowd had quieted down, Andrew arose and dismissed them for the night. Although both the apostles and his disciples frequently asked Jesus questions about the parable of Dives and Lazarus, he never consented to make comment thereon.

4. THE FATHER AND HIS KINGDOM

169:4.1 (1855.2) Jesus always had trouble trying to explain to the apostles that, while they proclaimed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a king*. At the time Jesus lived on earth and taught in the flesh, the people of Urantia knew mostly of kings and emperors in the governments of the nations, and the Jews had long contemplated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For these and other reasons, the Master thought best to designate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as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spirit head of this brotherhood as the *Father in heaven*. Never did Jesus refer to his Father as a king. In his intimate talks with the apostles he always referred to himself as the Son of Man and as their elder brother. He depicted all his followers as servants of mankind and messeng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69:4.2 (1855.3) Jesus never gave his apostles a systematic lesson concerning the personality and attributes of the Father in heaven. He never asked men to believe in his Father; he took it for granted they did. Jesus never belittled himself by offering arguments in proof of the reality of the Father. His teaching regarding the Father all centered in the

아버지가 하나임을;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임을;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든 것을 아심을; 아들만이, 그리고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계시 받을 자만이 참으로 아버지를 알 것임을;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아는 것임을;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의 연합된 본성을 나타내시고 공동 업무를 보여주려 하심을 선포하기에 중점됐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선포한 것 외에는, **아버지**에 대해 다르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너희는 **예수**의 교훈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삶의 신성{神性}을 주시해 봄으로써, **하나님**에 관해 배우게 된다. 영적이고 신성한 실체, 즉 실제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너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 개념을, 너희는 각자 **주님**의 삶에서 흡수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인생에서 유한한 체험을 겪은 시-공간 인격 안에 **무한자**가 집중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자는 **무한자**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체험 실체로써만 알려지실 수 있다는 것과; 정신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너희는, **예수**께서 말씀한 것을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었음을 앎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예수께서 **신격**을 언급할 때, **히브리** 성서를 인용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오직 두 가지 이름으로만 불렀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유대인** 부족{部族}의 **하나님**이라는 진취적 개념작용을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수{複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통 사용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른 적이 전혀 없었으며, 왕국 재건에 대한 **유대인**의 희망과, 다가오는 나라에 대한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시하는 영적 형제관계를 하느 나라라고 불러야 할 필요성이 생겼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 번의 예외--곧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선포--를 제외하고, **낙원의 제1 근원 및 중심**과 자신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서술적 방법으로도 **신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신격**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하나님**을 의미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큰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정의될 수 없고,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개념을 대표하며, 한편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

declaration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that he who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that the Father, like the Son, knows all things; that only the Son really knows the Father, and he to whom the Son will reveal him; that he who knows the Son knows also the Father; and that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to reveal their combined natures and to show forth their conjoint work. He never made other pronouncements about his Father except to the woman of Samaria at Jacob's well, when he declared, “God is spirit.”

169:4.3 (1856.1) You learn about God from Jesus by observing the divinity of his life, not by depending on his teachings. From the life of the Master you may each assimilate that concept of God which represents the measure of your capacity to perceive realities spiritual and divine, truths real and eternal. The finite can never hope to comprehend the Infinite except as the Infinite was focalized in the time-space personality of the finite experience of the human life of Jesus of Nazareth.

169:4.4 (1856.2) Jesus well knew that God can be known only by the realities of experience; never can he be understood by the mere teaching of the mind. Jesus taught his apostles that, while they never could fully understand God, they could most certainly know him, even as they had known the Son of Man. You can know God, not by understanding what Jesus said, but by knowing what Jesus was. Jesus was a revelation of God.

169:4.5 (1856.3) Except when quoting the Hebrew scriptures, Jesus referred to Deity by only two names: God and Father. And when the Master made reference to his Father as God, he usually employed the Hebrew word signifying the plural God (the Trinity) and not the word Yahweh, which stood for the progressive conception of the tribal God of the Jews.

169:4.6 (1856.4) Jesus never called the Father a king, and he very much regretted that the Jewish hope for a restored kingdom and John's proclamation of a coming kingdom made it necessary for him to denominate his proposed spiritual brotherhood the kingdom of heaven. With the one exception — the declaration that “God is spirit” — Jesus never referred to Deity in any manner other than in terms descriptive of his own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Paradise.

169:4.7 (1856.5) Jesus employed the word God to designate the idea of Deity and the word Father to designate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When the word Father is employed to denote God, it should be understood in its largest possible meaning. The word God cannot be defined and therefore stands for the infinite concept of the Father, while the term Father, being capable of partial definition, may be employed to represent

에, 필사자 실존 과정에서 사람과 관련되는 신성한 **아버지**에 대한 인간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대인에게, **엘로힘**은 모든 신(神)의 **하나님**이었고,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예수**께서는 **엘로힘** 개념을 받아들였고, 이 최고 존재들 집단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종족의 신격인 **야훼** 개념 대신에,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인간은 범_세계적 형제관계라는 관념을 소개했다. 그는 한 종족의 신격화된 **아버지** 개념을, 전체 인류 자녀의 **아버지**, 즉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 관념으로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이 우주들의 **하나님**과 이 전체 인류의 **아버지**는 완전히 동일한 **낙원 신격**이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엘로힘**(곧 **하나님**)의 현시(顯示)라고 주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계들을 향한 **엘로힘**(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은 **엘로힘**(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신은 육체를 입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성한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만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필사 아들들에게, 그런 계시를 필사적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삶을 통한 계시를, **아버지**의 성품 묘사에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낙원 삼위일체**의 다른 인격자들의 성품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육신화된 **아들**, 즉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서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드러났다.

예수께서 자신의 이 세상 생애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나타냈을지라도, 그에 관해 가르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오직 두 가지만 가르쳤는데: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피조물과 갖는 모든 관계성에서 그가 **아버지**시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날 저녁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최종 선언을 했다.

그러나 명심하라! **예수**께서는, “내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는 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지만, **예수**를 본 것은, 그 자체로, 혼에게 준 **아버지**에 대한 계시인 어떤 체험이다. 우주들의 **하나님**이 방대한 창조물을 다스리지만, 너희 정신 속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예수께서는 인간과 같은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을 물질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영적 렌즈다. 그는 천상의 무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

the human concept of the divine Father as he is associated with man during the course of mortal existence.

169:4.8 (1856.6) To the Jews, Elohim was the God of gods, while Yahweh was the God of Israel. Jesus accepted the concept of Elohim and called this supreme group of beings God. In the place of the concept of Yahweh, the racial deity, he introduced the idea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world-wide brotherhood of man. He exalted the Yahweh concept of a deified racial Father to the idea of a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men, a divine Father of the individual believer. And he further taught that this God of universes and this Father of all men were one and the same Paradise Deity.

169:4.9 (1856.7) Jesus never claimed to be the manifestation of Elohim (God) in the flesh. He never declared that he was a revelation of Elohim (God) to the worlds. He never taught that he who had seen him had seen Elohim (God). But he did proclaim himself a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in the flesh, and he did say that whoso had seen him had seen the Father. As the divine Son he claimed to represent only the Father.

169:4.10 (1857.1) He was, indeed, the Son of even the Elohim God; but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o the mortal sons of God, he chose to limit his life revelation to the portrayal of his Father's character in so far as such a revelation might be comprehensible to mortal man. As regards the character of the other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we shall have to be content with the teaching that they are altogether like the Father, who has been revealed in personal portraiture in the life of his incarnated Son, Jesus of Nazareth.

169:4.11 (1857.2) Although Jesus revealed the true nature of the heavenly Father in his earth life, he taught little about him. In fact, he taught only two things: that God in himself is spirit, and that, in all matters of relationship with his creatures, he is a Father. On this evening Jesus made the final pronouncement of his relationship with God when he declared: “I have come out from the Father, and I have come into the world; again, I will leave the world and go to the Father.”

169:4.12 (1857.3) But mark you! never did Jesus say, “Whoso has heard me has heard God.” But he did say,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To hear Jesus' teaching is not equivalent to knowing God, but to see Jesus is an experience which in itself is a revelation of the Father to the soul. The God of universes rules the far-flung creation, but it is the Father in heaven who sends forth his spirit to dwell within your minds.

169:4.13 (1857.4) Jesus is the spiritual lens in human likeness which makes visible to the material creature Him who is invisible. He is your elder

한한 속성의 어떤 **존재**를, 육신 속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너희의 형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별 신자**가 몸소 겪은 체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체험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영적 영역들의 신성한 **아들**들은,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로서만 물질세계의 유한한 아들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너희는 **영원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으며; 그분을, 우주들의 **하나님**, 즉 모든 존재의 무한하신 **창조주**로서 경배할 수 있다.

brother who, in the flesh, makes *known* to you a Being of infinite attributes whom not even the celestial hosts can presume fully to understand. But all of this must consist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God who is spirit can be known only as a spiritual experience. God can be revealed to the finite sons of the material worlds, by the divine Son of the spiritual realms, only as a *Father*. You can know the Eternal as a Father; you can worship him as the God of universes, the infinite Creator of all existences.

제170편. 하늘 나라

⇨ 169

유랜시아 책

171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70편
하늘 나라

섹션

소개

1. 하늘 나라의 개념
2. 예수의 천국한 개념
3. 의에 대한 관계
4. 천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5. 후일의 천국 개념

PAPER 170

THE KINGDOM OF HEAVEN

SECTIONS

Introduction

1.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2.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3. In Relation to Righteousness
4. Jesus' Teaching about the Kingdom
5. Later Ideas of the Kingdom

소개

3월 11일 토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펠라에서 전했다. 이것은 그의 대중 사역에서 특기할만한 연설에 속했는데, 하늘 나라에 관한 전체적이면서 완전한 논의를 내포했다. 그는 자신의 중여 사명을 지칭하는 데 상호 교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및 “하늘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하여, 제자는 물론 사도들도 마음 속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았다. 하늘 나라라는 바로 그 단어가 이 세상 나라 그리고 현세의 정부들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현세의 왕 관념이 유대인 정신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 그것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키워온 이 천국 개념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이 안식일 오후에, 주님은 하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으며; 그 문제를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용돼 온 말의 여러 다른 의미를 밝히려고 애썼다. 우리는 전에 예수께서 했던 많은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 첨부함으로써,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에 토론하는 동안 오직 사도들에게만 줬던 주의사항을 삽입함으로써, 그 강연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천국 관념

INTRODUCTION

170:0.1 (1858.1) SATURDAY afternoon, March 11, Jesus preached his last sermon at Pella. This was among the notable addresses of his public ministry, embracing a full and complete discus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He was aware of the confusion which existed in the minds of his apostles and disciples regard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terms “kingdom of heaven” and “kingdom of God,” which he used as interchangeable designations of his bestowal mission. Although the very term kingdom of *heaven* should have been enough to separate what it stood for from all connection with *earthly* kingdoms and temporal governments, it was not. The idea of a temporal king was too deep-rooted in the Jewish mind thus to be dislodged in a single generation. Therefore Jesus did not at first openly oppose this long-nourished concept of the kingdom.

170:0.2 (1858.2) This Sabbath afternoon the Master sought to clarify the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heaven; he discussed the subject from every viewpoint and endeavored to make clear the many different senses in which the term had been used. In this narrative we will amplify the address by adding numerous statements made by Jesus on previous occasions and by including some

이 후일에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련되는 대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도 확실히 언급하려고 한다.

1. 하늘 나라의 개념

예수의 설교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히브리** 성서 전반에는 하늘 나라에 대한 이중적 개념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현재의 실체로서; 그리고

2. 미래의 희망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남으로써 천국이 완전히 실현될 때. 이것이 **세레 요한**이 가르쳤던 천국 개념이다.

예수와 사도들은 아주 초기부터 이 두 개념을 다 가르쳤다. 염두에 두어야 할, 천국에 대한 다른 두 개념이 있었다:

3. 초자연적으로 기원(起源)되고 기적으로 세워진 범_세계적인 초월적 나라라는, **유대인**의 후기 개념.

4. 세상이 끝날 때 선이 악을 이기고 성취하는 신성한 나라가 설립될 것을 꿈꾸도록 하는 **페르시아**의 교훈.

예수께서 이 땅에 출현하기 직전에 **유대인**은, 이 모든 천국 개념을, **유대인**이 승리하는 시대를 설립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개념에 뒤섞어 버리고 혼돈을 일으켰는데, 그 시대는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최상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시대, 온 인류가 **야훼**를 경배하는 시기였다.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에 대한 이 개념들을 이용하기로 선택하면서, 가장 생생하고 절정에 도달한, **유대인** 및 **페르시아** 종교의 유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쳐 오면서, 잘 이해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되기도 했던 하늘 나라의 의미는, 네 가지 독특한 개념을 포함한다:

1. **유대인**의 개념.

2. **페르시아인**의 개념

3. **예수**의 개인_체험 개념 --“네 안에 있는 하늘 나라”

4. **그리스도교** 설립자들과 전파자들이 세상 사람에게 감동주기 위해 찾아낸, 합성되고 혼동된 개념들.

remarks made only to the apostles during the evening discussions of this same day. We will also make certain comments dealing with the subsequent outworking of the kingdom idea as it is related to the later Christian church.

1.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170:1.1 (1858.3) In connection with the recital of Jesus' sermon it should be noted that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there was a dual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prophets presented the kingdom of God as:

170:1.2 (1858.4) 1. A present reality; and as

170:1.3 (1858.5) 2. A future hope — when the kingdom would be realized in fullness upon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is is the kingdom concept which John the Baptist taught.

170:1.4 (1858.6) From the very first Jesus and the apostles taught both of these concepts. There were two other ideas of the kingdom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170:1.5 (1858.7) 3. The later Jewish concept of a world-wide and transcendental kingdom of supernatural origin and miraculous inauguration.

170:1.6 (1858.8) 4. The Persian teachings portraying the establishment of a divine kingdom as the achievement of the triumph of good over evil at the end of the world.

170:1.7 (1858.9) Just before the advent of Jesus on earth, the Jews combined and confused all of these ideas of the kingdom into their apocalyptic concept of the Messiah's coming to establish the age of the Jewish triumph, the eternal age of God's supreme rule on earth, the new world, the era in which all mankind would worship Yahweh. In choosing to utilize this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Jesus elected to appropriate the most vital and culminating heritage of both the Jewish and Persian religions.

170:1.8 (1859.1) The kingdom of heaven, as it has been understood and misunderstood down through th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embraced four distinct groups of ideas:

170:1.9 (1859.2) 1. The concept of the Jews.

170:1.10 (1859.3) 2. The concept of the Persians.

170:1.11 (1859.4) 3. The personal-experience concept of Jesus —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170:1.12 (1859.5) 4. The composite and confused concepts which the founders and promulgators of Christianity have sought to impress upon the world.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해 대중을 가르칠 때,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개념을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땅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개인 체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항상 가르쳤다. 천국을 언급할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천국은 네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하늘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여러 세기 동안 혼동을 일으켜온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1. **예수**와 사도들이 “천국” 관념을 고쳐 쓰는 다양한 점진적 국면을 지나올 때,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생긴 혼동.

2.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 토양에서 이방인의 토양으로 이주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혼동.

3.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인격자라는 중심 관념 주변에 설립된 종교가 돼갔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던 혼동; 천국 복음은 점점 더 그에 관한 종교가 돼갔다.

2. 예수의 천국한 개념

주님은, 하늘 나라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진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출발해야 하고 거기에 중심 되야만 함을 명확히 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랫동안 구속 받아온 동물적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재능을 갖추도록,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1. 새로운 용기와 증진된 영적 능력의 소유. 천국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으며, 감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영감을 줬다.

2.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신뢰와 참된 위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3. 복음 자체가 원래 도덕적 가치관의 새로운 기준이었으며, 인간의 행실을 재는 윤리적 척도였다. 복음은 그 결과로 생기는 새 질서의 인간 사회의 이상{理想}을 표현했다.

4. 복음은 물질적인 것에 대비된 영적인 것의 탁월성을 가르쳤으며; 영적 실체에 영광 돌리고 초인적 이상을 찬양했다.

5. 이 새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세웠다. 인간의 생명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새로운 재능을 받았다.

170:1.13 (1859.6) At different times and in varying circumstances it appears that Jesus may have presented numerous concepts of the “kingdom” in his public teachings, but to his apostles he always taught the kingdom as embracing man’s personal experience in relation to his fellows on earth and to the Father in heaven. Concerning the kingdom, his last word always was, “The kingdom is within you.”

170:1.14 (1859.7) Centuries of confusion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term “kingdom of heaven” have been due to three factors:

170:1.15 (1859.8) 1. The confusion occasioned by observing the idea of the “kingdom” as it passed through the various progressive phases of its recasting by Jesus and his apostles.

170:1.16 (1859.9) 2. The confusion which wa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transplantation of early Christianity from a Jewish to a gentile soil.

170:1.17 (1859.10) 3. The confusion which was inherent in the fact that Christianity became a religion which was organized about the central idea of Jesus’ person; the gospel of the kingdom became more and more a religion *about* him.

2.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170:2.1 (1859.11) The Master made it clear that the kingdom of heaven must begin with, and be centered in, the dual concept of the truth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correlated fact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acceptance of such a teaching, Jesus declared, would liberate man from the age-long bondage of animal fear and at the same time enrich human living with the following endowments of the new life of spiritual liberty:

170:2.2 (1859.12) 1. The possession of new courage and augmented spiritual power. The gospel of the kingdom was to set man free and inspire him to dare to hope for eternal life.

170:2.3 (1859.13) 2. The gospel carried a message of new confidence and true consolation for all men, even for the poor.

170:2.4 (1859.14) 3. It was in itself a new standard of moral values, a new ethical yardstick wherewith to measure human conduct. It portrayed the ideal of a resultant new order of human society.

170:2.5 (1859.15) 4. It taught the pre-eminence of the spiritual compared with the material; it glorified spiritual realities and exalted superhuman ideals.

170:2.6 (1860.1) 5. This new gospel held up spiritual attainment as the true goal of living. Human life received a new endowment of moral value and divine dignity.

6.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애쓴 결과라고(곧 보상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고귀한 운명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7. 인간의 구원은 멀리까지 미치는 신성한 목적이 드러난 것임을 새 복음이 확인했는데, 그 목적은 구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없이 봉사하는 미래 운명에서 실현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가르쳤던 천국에 대한, 확장된 관념을 포함한다. 이 위대한 개념은, **세례 요한**의 초보적이면서 혼동된 나라에 대한 교훈에는 거의 포함될 수 없었다.

사도들은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에 대한 그 후의 왜곡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그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곧 돌아와서 능력과 영광 중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곧 그가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집착했던 바로 그런 관념으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개념이 얼룩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관념을 천국 설립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새 시대**”의 출현에 대한 어떤 정도도 없이 여러 세기가 지나간 것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설교를 통해서 크게 노력한 것은, 하늘 나라 개념을, **하나님** 뜻을 행함에 대한 관념이라는 이상(理想)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 **주님**은 추종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이때 그는 그들에게, 더 실질적 동의어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왕국, 왕, 및 백성이라는 관념 대신,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동료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숭고하면서 총명하게 경배 드리기에 바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몹시 원했다.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천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점을 습득해 왔으며; 다음과 같이 간주했다:

1. 그 당시에 참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던, 몸소 체험하는 문제, 그리고

2. 인종적이거나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 천국은 장래에 오는,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것.

그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도래하는 천국은, 마치 가루 속의 누룩처럼 또는 겨자씨가 자라는

170:2.7 (1860.2) 6. Jesus taught that eternal realities were the result (reward) of righteous earthly striving. Man's mortal sojourn on earth acquired new meanings consequent upon the recognition of a noble destiny.

170:2.8 (1860.3) 7. The new gospel affirmed that human salvation is the revelation of a far-reaching divine purpose to be fulfilled and realized in the future destiny of the endless service of the salvaged sons of God.

170:2.9 (1860.4) These teachings cover the expanded idea of the kingdom which was taught by Jesus. This great concept was hardly embraced in the elementary and confused kingdom teachings of John the Baptist.

170:2.10 (1860.5) The apostles were unable to grasp the real meaning of the Master's utterances regarding the kingdom. The subsequent distortion of Jesus' teachings, as they are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is because the concept of the gospel writers was colored by the belief that Jesus was then absent from the world for only a short time; that he would soon return to establish the kingdom in power and glory — just such an idea as they held while he was with them in the flesh. But Jesus did not connect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with the idea of his return to this world. That centuries have passed with no signs of the appearance of the “New Age” is in no way out of harmony with Jesus' teaching.

170:2.11 (1860.6) The great effort embodied in this sermon was the attempt to translate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into the ideal of the idea of doing the will of God. Long had the Master taught his followers to pr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nd at this time he earnestly sought to induce them to abandon the use of the term *kingdom of God* in favor of the more practical equivalent, *the will of God*. But he did not succeed.

170:2.12 (1860.7) Jesus desired to substitute for the idea of the kingdom, king, and subjects, the concept of the heavenly family, the heavenly Father, and the liberated sons of God engaged in joyful and voluntary service for their fellow men and in the sublime and intelligent worship of God the Father.

170:2.13 (1860.8) Up to this time the apostles had acquired a double viewpoint of the kingdom; they regarded it as:

170:2.14 (1860.9) 1.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then present in the hearts of true believers, and

170:2.15 (1860.10) 2. A question of racial or world phenomena; that the kingdom was in the future,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70:2.16 (1860.11) They looked upon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as a gradual

것처럼, 점차 발전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인종적 또는 세속적 인식 속에서 도래하는 천국은, 갑자기 호화로운 모습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가 더 높은 영적 삶의 자질을 실현하는 자들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위엄이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다.

이날 오후에, **주님**은 천국의 이중적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함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쳤다: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즉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선된 행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이타적 사랑이다.

“둘째,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필사 신자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더 신성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신앙으로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그는 여러 강론에서 천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가르쳤다:

1. **신앙, 순수함.**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신분의 증여를 선물로 받을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완전한 확신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올 것;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가르침 받을 준비가 돼 있을 것.

2. **진리를 갈망함.** 의를 목마르게 찾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획득하는 것.

예수께서는, 죄는 불완전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에 지배된, 고의적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죄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과; 우리 동료들을 용서해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용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는 그로 인해 너희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너희 혼 속에 갖추게 된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까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박해받는 장본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관념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므로, 그 말의 사용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됐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한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나라”라고 자주 표현했다. 또한 그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

development, like the leaven in the dough or like the growing of the mustard seed. They believed that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the racial or world sense would be both sudden and spectacular. Jesus never tired of telling them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realizing the higher qualities of spiritual living; that these realities of the spirit experience are progressively translated to new and higher levels of divine certainty and eternal grandeur.

170:2.17 (1860.12) On this afternoon the Master distinctly taught a new concept of the double nature of the kingdom in that he portrayed the following two phases:

170:2.18 (1860.13) “First. The kingdom of God in this world, the supreme desire to do the will of God, the unselfish love of man which yields the good fruits of improved ethical and moral conduct.

170:2.19 (1861.1) “Second.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the goal of mortal believers, the estate wherein the love for God is perfected, and wherein the will of God is done more divinely.”

170:2.20 (1861.2) Jesus taught that, by faith, the believer enters the kingdom *now*. In the various discourses he taught that two things are essential to faith-entrance into the kingdom:

170:2.21 (1861.3) 1. *Faith, sincerity.* To come as a little child, to receive the bestowal of sonship as a gift; to submit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without questioning and in the full confidence and genuine trustfulness of the Father's wisdom; to come into the kingdom free from prejudice and preconception; to be open-minded and teachable like an unspoiled child.

170:2.22 (1861.4) 2. *Truth hunger.* The thirst for righteousness, a change of mind, the acquirement of the motive to be like God and to find God.

170:2.23 (1861.5) Jesus taught that sin is not the child of a defective nature but rather the offspring of a knowing mind dominated by an unsubmitive will. Regarding sin, he taught that God *has* forgiven; that we make such forgiveness personally available by the act of forgiving our fellows. When you forgive your brother in the flesh, you thereby create the capacity in your own soul for the reception of the reality of God's forgiveness of your own misdeeds.

170:2.24 (1861.6) By the time the Apostle John began to write the story of Jesus' life and teachings, the early Christians had experienced so much trouble with the kingdom-of-God idea as a breeder of persecution that they had largely abandoned the use of the term. John talks much about the “eternal life.” Jesus often spoke of it as the “kingdom of life.” He also frequently referred to “the

했다. 그는 그런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가족적인 교제”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많은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친구들, 믿는 자들의 교제, 사람의 형제관계, **아버지**의 양 떼, **하나님**의 자녀들, 충실한 신자들의 교제, **아버지**의 돌보심,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그는 천국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50년도 더 지난 뒤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까지도, 이 천국 개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고, 한편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굳어져간 **그리스도교** 교회가, 천국의 사교적이고 제도적인 면들을 인계받았다.

3. 의에 대한 관계

예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허세부리며 과시하는, 노예근성으로 행하는 의(義)를 능가할 만한 의를, 신앙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항상 노력했다.

예수께서는, 신앙, 즉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모든 믿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강건한 아들이라는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 올라가야 할, 점진적 의의 계단이 있다는 것도 가르쳤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감안할 때, 천국의 의를 달성했음이 드러난다. 신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代價)이지만; 용서는, 너희의 신앙을 입장으로 받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내포하며, 아래와 같은 네 단계, 즉 내적(內的)인 의의 천국 계단을 통해서 이뤄진다:

1.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사람이 동료를 용서하는 한에서만 그에게 실제로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체험된다.
2. 사람은 동료를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동료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3. 이처럼 이웃을 너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 윤리이다.
4. 그렇게 되면, 도덕적 행실, 즉 참된 의가 그런 사랑의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되고 내적인 천국의 종교는 반드시

kingdom of God within you.” He once spoke of such an experience as “family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Jesus sought to substitute many terms for the kingdom but always without success. Among others, he used: the family of God, the Father’s will, the friends of God, the fellowship of believers, the brotherhood of man, the Father’s fold, the children of God, the fellowship of the faithful, the Father’s service, and the liberated sons of God.

170:2.25 (1861.7) But he could not escape the use of the kingdom idea. It was more than fifty years later, not until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the Roman armies, that this concept of the kingdom began to change into the cult of eternal life as its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were taken over by the rapidly expanding and crystallizing Christian church.

3. IN RELATION TO RIGHTEOUSNESS

170:3.1 (1861.8) Jesus was always trying to impress upon his apostles and disciples that they must acquire, by faith, a righteousness which would exceed the righteousness of slavish works which some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paraded so vaingloriously before the world.

170:3.2 (1861.9) Though Jesus taught that faith, simple childlike belief, is the key to the door of the kingdom, he also taught that, having entered the door, there are the progressive steps of righteousness which every believing child must ascend in order to grow up to the full stature of the robust sons of God.

170:3.3 (1861.10) It i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technique of *receiving* God’s forgiveness that the attainment of the righteousness of the kingdom is revealed. Faith is the price you pay for entrance into the family of God; but forgiveness is the act of God which accepts your faith as the price of admission. And the reception of the forgiveness of God by a kingdom believer involves a definite and actual experience and consists in the following four steps, the kingdom steps of inner righteousness:

- 170:3.4 (1862.1) 1. God’s forgiveness is made actually available and is personally experienced by man just in so far as he forgives his fellows.
- 170:3.5 (1862.2) 2. Man will not truly forgive his fellows unless he loves them as himself.
- 170:3.6 (1862.3) 3. To thu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the highest ethics.
- 170:3.7 (1862.4) 4. Moral conduct, true righteousness, becomes, then, the natural result of such love.

170:3.8 (1862.5) It therefore is evident that the true and

시 그리고 점점 더, 사회봉사라는 실제 방법을 통해서 자체를 증거 하는 경향이 명백하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봉사로 수고하도록 유도하는 살아있는 종교를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교의 자리를 윤리로 대체하지 않았다. 종교는 원인이고 윤리는 결과라고 가르쳤다.

어떤 행동이 얼마나 의로운지는, 그 동기에 따라서 측정돼야 하며;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종류의 선(善)은 의식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도덕과 윤리 그 자체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에만 전적으로 관여했는데, 그런 교제는 사람에게 외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만큼 확실하게 직접 나타난다. 천국의 종교는, 누구도 자기 마음에 가둬두지 못하는 참된 개인 체험이라고 가르쳤으며; 신자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자각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계율, 즉 형제관계를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봉사를 어쩔 수 없이 실행하도록 유도한다고 가르쳤다.

천국의 종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 열매, 즉 결과는 가족과 사회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공동체와 대조하여 개인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은 이타적 봉사를 통해서 성품을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동료들 사랑하는 관계에서 도덕적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는 또한 인식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마음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개인을 고양시킴으로써, 낡은 사회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그 안에서 참된 사회적 의의 새로운 섭리시대로 인도했다.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상이 잘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하늘 나라 복음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때, 단지 개선된 사회적 및 물질적 상태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고 강화된 영적 가치의 영광에서도 드러날 것인데, 그런 영적 가치는, 다가오는 시대의 특질인, 개선된 인간관계와 진보하는 영적 달성의 특징이다.

4. 천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천국의 한 국면을 강론하고, 다른 때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통치하의 형제관계에 대한 다른 면을 토의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오후 설교 도중에, 다음과 같이 천국의 다섯 국면 또는 시대에 대해 언급했다:

1. 신자 각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삶을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서 겪는 체험.

inner religion of the kingdom unfailingly and increasingly tends to manifest itself in practical avenues of social service. Jesus taught a living religion that impelled its believers to engage in the doing of loving service. But Jesus did not put ethics in the place of religion. He taught religion as a cause and ethics as a result.

170:3.9 (1862:6) The righteousness of any act must be measured by the motive; the highest forms of good are therefore unconscious. Jesus was never concerned with morals or ethics as such. He was wholly concerned with that inward and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which so certainly and directly manifests itself as outward and loving service for man. He taught that the religion of the kingdom is a genuine personal experience which no man can contain within himself; that the consciousness of being a member of the family of believers leads inevitably to the practice of the precepts of the family conduct, the service of one'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effort to enhance and enlarge the brotherhood.

170:3.10 (1862:7) The religion of the kingdom is personal, individual; the fruits, the results, are familial, social. Jesus never failed to exalt the sacredness of the individual as contrasted with the community. But he also recognized that man develops his character by unselfish service; that he unfolds his moral nature in loving relations with his fellows.

170:3.11 (1862:8) By teaching that the kingdom is within, by exalting the individual, Jesus struck the deathblow of the old society in that he ushered in the new dispensation of true social righteousness. This new order of society the world has little known because it has refused to practice the principl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en this kingdom of spiritual pre-eminence does come upon the earth, it will not be manifested in mere improved social and material conditions, but rather in the glories of those enhanced and enriched spiritual valu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age of improved human relations and advancing spiritual attainments.

4. JESUS' TEACHING ABOUT THE KINGDOM

170:4.1 (1862:9) Jesus never gave a precise definition of the kingdom. At one time he would discourse on one phase of the kingdom, and at another time he would discuss a different aspect of the brotherhood of God's reign in the hearts of men. In the course of this Sabbath afternoon's sermon Jesus noted no less than five phases, or epochs, of the kingdom, and they were:

170:4.2 (1862:10) 1. The personal and inward experience of the spiritual life of the fellowship of

2. 복음을 믿는 자들의 확대되는 형제관계, 즉 신자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증진된 도덕과 소생된 윤리의 사회적 양상들.

3. 이 땅과 하늘에서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인적 형제관계, 즉 **하나님**의 초인적 나라.

4. **하나님** 뜻이 더 완전하게 성취될 전망, 즉 증진된 영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질서의 도래--곧 사람의 다음 시대의 도래--를 향한 전진.

5. 충만한 상태에 있는 천국, 즉 장차 이 세상에 도래할 빛과 생명의 영적 시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이 하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다섯 가지 상태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 사람의 뜻을 점차 바꾸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가엘**과 그 동역자들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진화, 즉 사회적 및 다른 여러 가지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님**은 천국 복음의 기본 특색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점을 강조했다:

1. 각 개인의 탁월성.
2. 사람의 체험에서 결정 요소인 의지.
3.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4.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얻는 승고한 만족.

5. 인간의 인격 안에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함.

이 세상은, **예수**께서 하늘 나라에 대해 원칙으로 세운 이런 역동적 관념과 신성한 이상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살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천국 관념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순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양쪽에서 갑자기,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주기적 변화에 따라서 이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육신화 한 **아들**로서 **예수**의 증여는, 이 세상의 영적 생애에서 그런 미지의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었다. 또한 천국의 시대적 징후를 찾으라고, 너희 자신의 혼 속에 천국을 확립하지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말라.

비록 **예수**께서 천국의 한 국면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사건이 세상의

the individual believer with God the Father.

170:4.3 (1863.1) 2. The enlarging brotherhood of gospel believers, the social aspects of the enhanced morals and quickened ethics resulting from the reign of God's spirit in the hearts of individual believers.

170:4.4 (1863.2) 3. The supermortal brotherhood of invisible spiritual beings which prevails on earth and in heaven, the superhuman kingdom of God.

170:4.5 (1863.3) 4. The prospect of the more perfect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the advance toward the dawn of a new social order in connection with improved spiritual living — the next age of man.

170:4.6 (1863.4) 5. The kingdom in its fullness, the future spiritual age of light and life on earth.

170:4.7 (1863.5) Wherefore must we always examine the Master's teaching to ascertain which of these five phases he may have reference to when he makes use of the term kingdom of heaven. By this process of gradually changing man's will and thus affecting human decisions, Michael and his associates are likewise gradually but certainly changing the entire course of human evolution, social and otherwise.

170:4.8 (1863.6) The Master on this occasion placed emphasis on the following five points as representing the cardinal featur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70:4.9 (1863.7) 1. The pre-eminence of the individual.

170:4.10 (1863.8) 2. The will as the determining factor in man's experience.

170:4.11 (1863.9) 3.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170:4.12 (1863.10) 4. The supreme satisfactions of the loving service of man.

170:4.13 (1863.11) 5. The transcendency of the spiritual over the material in human personality.

170:4.14 (1863.12) This world has never seriously or sincerely or honestly tried out these dynamic ideas and divine ideals of Jesus' doctrine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you should not become discouraged by the apparently slow progress of the kingdom idea on Urantia. Remember that the order of progressive evolution is subjected to sudden and unexpected periodical changes in both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The bestowal of Jesus as an incarnated Son was just such a strange and unexpected event in the spiritual life of the world. Neither make the fatal mistake, in looking for the age manifestation of the kingdom, of failing to effect its establishment within your own souls.

170:4.15 (1863.13) Although Jesus referred one phase of the kingdom to the future and did, on numerous

위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했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틀림없이 **유란시아**로 돌아오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을지라도, 이 두 관념을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장차 언젠가 이 땅에 천국을 새롭게 계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겠다는 것도 약속했지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약속들은 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도와 제자들은 이 두 교훈을 매우 확실히 연결시켰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천국이 실현되지 않자, 미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약속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비약해서 결론 내렸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주님**이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곧 두 번째로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 후로 믿는 세대들은, 용기를 주는 동시에 실망시키는 희망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다.

5. 후일의 천국 개념

하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천국 개념에 덧붙여진 후일의 어떤 관념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는 세대에 전개될 것으로서 천국에 대한 예언적 전망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리스도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세기 동안 내내, 하늘 나라 관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리스** 이상주의의 관념, 즉 자연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는--곧 현세(現世)는 영원한 세계가 시간세계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관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토양으로 두드러지게 옮겨 심은 그 큰 걸음은, 천국의 **메시아**가 교회의 **구원주**가 됐을 때 이뤄졌는데, 교회는 **바울**과 그 후계자들의 활동에서 태동됐고, **예수**의 교훈에 기초한, 종교적 및 사회적 조직체였으며, **필로**의 관념 및 선과 악에 대한 **페르시아** 교리가 그 교훈에 첨부됐다.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 구체화됐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거의 실패한 이유는, 그가 선포한 것들을 그 추종자들이 점차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개념은, 두 가지 큰 경향으로 인해 눈에 띄게 변경됐다:

1.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간주하기

occasions, intimate that such an event might appear as a part of a world crisis; and though he did likewise most certainly, on several occasions, definitely promise sometime to return to Urantia, it should be recorded that he never positively linked these two ideas together. He promised a new revelation of the kingdom on earth and at some future time; he also promised sometime to come back to this world in person; but he did not say that these two events were synonymous. From all we know these promises may, or may not, refer to the same event.

170:4.16 (1863.14) His apostles and disciples most certainly linked these two teachings together. When the kingdom failed to materialize as they had expected, recalling the Master's teaching concerning a future kingdom and remembering his promise to come again, they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promises referred to an identical event; and therefore they lived in hope of his immediate second coming to establish the kingdom in its fullness and with power and glory. And so have successive believing generations lived on earth entertaining the same inspiring but disappointing hope.

5. LATER IDEAS OF THE KINGDOM

170:5.1 (1864.1) Having summarized the teachings of Jesu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permitted to narrate certain later ideas which became attached to the concept of the kingdom and to engage in a prophetic forecast of the kingdom as it may evolve in the age to come.

170:5.2 (1864.2) Throughout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propaganda, the idea of the kingdom of heaven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hen rapidly spreading notions of Greek idealism, the idea of the natural as the shadow of the spiritual — the temporal as the time shadow of the eternal.

170:5.3 (1864.3) But the great step which marked the transplantation of the teachings of Jesus from a Jewish to a gentile soil was taken when the Messiah of the kingdom became the Redeemer of the church, a religious and social organization growing out of the activities of Paul and his successors and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supplemented by the ideas of Philo and the Persian doctrines of good and evil.

170:5.4 (1864.4) The ideas and ideals of Jesus, embodied in the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early failed of realization as his followers progressively distorted his pronouncements. The Master's concept of the kingdom was notably modified by two great tendencies:

170:5.5 (1864.5) 1. The Jewish believers persisted in

를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매우 속히 실제로 돌아와서, 전 세계적이고 다소간 물질적인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다.

2. **예수가 구원주**라는 막연한 믿음 쪽으로 교회 신도들을 점차 인도한 **바울**의 교리를, 이방 **그리스도교인**이 매우 일찍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순수하게 영적인 천국 형제관계라는 초기 개념을, 그 **구원주**가 낯설게 제도적으로 대신했다.

천국의 사회적 부산물로서 교회는 완전히 자연스런 것이었으며, 오히려 바람직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교회로 인한 해악은, 그것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예수**의 개념을 거의 완전하게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울**이 조직한 교회가,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 나라의 실제 대용품이 됐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바로 이 하늘 나라가 신자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며, 땅위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 종족, 및 국가에게 --심지어 각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에도 선포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가르친 천국, 즉 개인이 의롭게 된다는 영적{靈的} 이상,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신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개념이, **예수**라는 인격자를 **구세주_창조주**로 여기고, 사회화{社會化}된 종교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로 여기는, 신비주의적 개념작용 속으로 점차 매몰돼버렸다.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이 지배하는 천국의 형제관계를 이런 식으로 대체했다.

교회는 **예수**의 삶과 교훈의 필연적이고 유용한 사회적 성과였으며;천국의 교훈을 향한 이 사회적 반응이, **예수**께서 가르치고 또한 그대로 살았던 참다운 천국의 영적 개념을, 너무 완전하게 대체해버렸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었다.

유대인에게, 천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으며; 이방인에게, 천국은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예수**께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전심으로 헌신하기로 선언하며, 그리하여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의 일원이 되는 그런 **개인**들 전체였다.

주님은, 천국 복음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지만;그런 모든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신자들 각자의 이 내적{內的} 개인 체험, 즉 모든 신자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활성화하는 신성한 영광 순전히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와 친교에서, 자연스런 열매로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부산물이기를 바랐다.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They believed that Jesus would very soon return actually to establish the world-wide and more or less material kingdom.

170:5.6 (1864.6) 2. The gentile Christians began very early to accept the doctrines of Paul, which led increasingly to the general belief that Jesus was the *Redeemer* of the children of the church, the new and institutional successor of the earlier concept of the purely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kingdom.

170:5.7 (1864.7) The church, as a social outgrowth of the kingdom, would have been wholly natural and even desirable. The evil of the church was not its existence, but rather that it almost completely supplanted the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Paul's institutionalized church became a virtual substitute for the kingdom of heaven which Jesus had proclaimed.

170:5.8 (1864.8) But doubt not, this same kingdom of heaven which the Master taught exists within the heart of the believer, will yet be proclaimed to this Christian church, even as to all other religions, races, and nations on earth — even to every individual.

170:5.9 (1864.9) The kingdom of Jesus' teaching, the spiritual ideal of individual righteousness and the concept of man's divine fellowship with God, became gradually submerged into the mystic conception of the person of Jesus as the Redeemer-Creator and spiritual head of a socialized religious community. In this way a formal and institutional church became the substitute for the individually spirit-led brotherhood of the kingdom.

170:5.10 (1864.10) The church was an inevitable and useful *social* result of Jesus' life and teachings; the tragedy consisted in the fact that this social reaction to the teachings of the kingdom so fully displaced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real kingdom as Jesus taught and lived it.

170:5.11 (1865.1) The kingdom, to the Jews, was the Israelite *community*; to the gentiles it became the Christian *church*. To Jesus the kingdom was the sum of those *individuals* who had confessed their faith in the fatherhood of God, thereby declaring their wholehearted dedication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thus becoming members of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170:5.12 (1865.2) The Master fully realized that certain social results would appear in the world as a consequence of the spread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he intended that all such desirable social manifestations should appear as unconscious and inevitable outgrowths, or natural fruits, of this inner personal experience of individual believers, this purely spiritual fellowship and communion with the divine spirit which indwells and activates all such believers.

예수께서는, 사회 조직 또는 교회가 참된 영적 천국의 진보를 뒤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_사랑하는 혼, 즉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신앙으로 영적 천국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사도들은, 그런 신자는 공개적인 세례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회 조직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다.

영이 개별 신자를 지배하고 인도함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뤄진다는 **예수**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기에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그들 직접 따랐던 자들이 인식했을 때, 그들은 천국에 대한 **주님**의 이상 대신, 가시적 사회 조직인 **그리스도교** 교회를 점차 조성해 감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대치 계획표를 다 완성하자, 천국의 실상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천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잘 확립되자마자, 교회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최고 정점(頂點)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도래하는 그때 천국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은 한 시대의 개념, 미래에 도래한다는 관념, 그리고 **지고자**의 성인(聖人)들이 최종적으로 구출된다는 이상(理想)이 됐다.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교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내포했던 **아버지**와 _아들의 관념을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반면, 그 대신에 교회라는 잘 조직된 사회 공동체로 대치(代置)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주로 사회적 형제관계가 됐으며, 영적 형제관계라는 **예수**의 개념과 이상을 실제로 대체해 버렸다.

예수의 이상적 개념은 크게 실패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개인 생애와 교훈이라는 기초 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인** 및 **페르시아인** 개념을 덧붙이고, 영적인 것에 대비된 현세적인 것에 대한 **필로**의 교리를 첨부시킴으로, **유란시아**에 존재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진취적인 인간 단체 하나를 세워 나갔다.

예수의 개념은, 세상의 진보된 종교들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께서 하는 나라가 이렇게 돼야한다고 의도했던 상태--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상태--가 사회화되고 인간화된 그림자다. **바울**과 그 후계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개인으로부터 교회로 일부 옮겨버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천국 가족 안에서 믿는 자 각 개인의 형님이 되기 보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 **바울**과 그 동시대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과 믿는 자 각 개인에 관해

170:5.13 (1865.3) Jesus foresaw that a social organization, or church, would follow the progress of the true spiritual kingdom, and that is why he never opposed the apostles' practicing the rite of John's baptism. He taught that the truth-loving soul, the one who hungers and thirsts for righteousness, for God, is admitted by faith to the spiritual kingdom; at the same time the apostles taught that such a believer is admitted to the social organization of disciples by the outward rite of baptism.

170:5.14 (1865.4) When Jesus' immediate followers recognized their partial failure to realize his ide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by the spirit's domination and guida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they set about to save his teaching from being wholly lost by substituting for the Master's ideal of the kingdom the gradual creation of a visible social organization, the Christian church. And when they had accomplished this program of substitution,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and to provide for the recognition of the Master's teaching regarding the fact of the kingdom, they proceeded to set the kingdom off into the future. The church, just as soon as it was well established, began to teach that the kingdom was in reality to appear at the culmination of the Christian age,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170:5.15 (1865.5) In this manner the kingdom became the concept of an age, the idea of a future visitation, and the ideal of the final redemption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The early Christians (and all too many of the later ones) generally lost sight of the Father-and-son idea embodied in Jesus' teaching of the kingdom, while they substituted therefor the well-organized social fellowship of the church. The church thus became in the main a *social* brotherhood which effectively displaced Jesus' concept and ideal of a *spiritual* brotherhood.

170:5.16 (1865.6) Jesus' ideal concept largely failed, but upon the foundation of the Master's personal life and teachings, supplemented by the Greek and Persian concepts of eternal life and augmented by Philo's doctrine of the temporal contrasted with the spiritual, Paul went forth to build up one of the most progressive human societies which has ever existed on Urantia.

170:5.17 (1865.7) The concept of Jesus is still alive in the advanced religions of the world. Paul's Christian church is the socialized and humanized shadow of what Jesus intended the kingdom of heaven to be — and what it most certainly will yet become. Paul and his successors partly transferred the issues of eternal life from the individual to the church. Christ thus became the head of the church rather than the elder brother of each individual believer in the Father's family of

영적으로 암시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 집단인 교회에 적용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자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천국이라는 예수님의 개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교회는 큰 낭패를 체험했는데, 신비한 능력과 특권, 즉 오직 예수와 영적 신자 형제들 사이에서만 체험되고 실행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교회에 있다고 감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사실은 천국 안에서의 교제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됐으며,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는, 더 위대한 다른 세례 요한이 머지않아 나타날 예정인데--이는, 천국은 신자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던 예수의 고상한 영적 개념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그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예상되는 재림(再臨)과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는, 미가엘이 이 땅에 머물렀던 사실에 관해 믿는 사회철학의 체계를 창작하려 했던 초기 추종자들의 업적을 무효화시킬 그런 수정된 선언, 즉 예수의 실제 교훈이 다시 소생될 것이다. 예수에 관한 이 이야기의 가르침이, 예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대체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의 숭고한 도덕 개념과 영적 이상을, 미래에 대한 사람의 가장 고상한 희망--곧 영생--과 조화시켰지만, 역사적 종교가 이런 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대체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다.

몇 세기도 못 돼서, 그의 교훈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그토록 많은 이교(異敎)와 분파로 나뉜 것은, 순전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런 비참한 분열은, 주님의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생애의 신성한 단일성을, 그의 다양한 교훈에서 식별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지적 납득과 해석, 심지어 변화하는 사회화 단계를 거칠 수 있지만, 영적 형제관계의 결여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수하지 마라! 예수의 교훈에는,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열매 맺지 못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께서 생각했던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실패했으며; 한동안, 외견상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 교회는 오직 방해받는 영적 천국의 애벌레 같은 단계라는 것과, 주님의 교훈이, 이 물질 시대

the kingdom. Paul and his contemporaries applied all of Jesus' spiritual implications regarding himself and the individual believer to the church as a group of believers; and in doing this, they struck a deathblow to Jesus' concept of the divine kingdom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believer.

170:5.18 (1866.1) And so, for centuries, the Christian church has labored under great embarrassment because it dared to lay claim to those mysterious powers and privileges of the kingdom, powers and privileges which can be exercised and experienced only between Jesus and his spiritual believer brothers. And thus it becomes apparent that membership in the church does not necessarily mean fellowship in the kingdom; one is spiritual, the other mainly social.

170:5.19 (1866.2) Sooner or later another and greater John the Baptist is due to arise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 meaning a return to the high spiritual concept of Jesus, who proclaimed that the kingdom is the will of his heavenly Father dominant and transcendent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 and doing all this without in any way referring either to the visible church on earth or to the anticipated second coming of Christ. There must come a revival of the actual teachings of Jesus, such a restatement as will undo the work of his early followers who went about to create a sociophilosophical system of belief regarding the fact of Michael's sojourn on earth. In a short time the teaching of this story about Jesus nearly supplanted the preaching of Jesus' gospel of the kingdom. In this way a historical religion displaced that teaching in which Jesus had blended man's highest moral ideas and spiritual ideals with man's most sublime hope for the future — eternal life. And that was the gospel of the kingdom.

170:5.20 (1866.3) It is just because the gospel of Jesus was so many-sided that within a few centuries students of the records of his teachings became divided up into so many cults and sects. This pitiful subdivision of Christian believers results from failure to discern in the Master's manifold teachings the divine oneness of his matchless life. But someday the true believers in Jesus will not be thus spiritually divided in their attitude before unbelievers. Always we may have diversity of intellectual comprehension and interpretation, even varying degrees of socialization, but lack of spiritual brotherhood is both inexcusable and reprehensible.

170:5.21 (1866.4) Mistake not! there is in the teachings of Jesus an eternal nature which will not permit them forever to remain unfruitful in the hearts of thinking men. The kingdom as Jesus conceived it has to a large extent failed on earth; for the time being, an outward church has taken its place; but you should comprehend that this church is only

를 거쳐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누릴, 더 영적인 섭리시대로 천국을 옮겨줄 것이라는 점을, 너희는 납득해야 한다. 그리하여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는 마치 고치 같은데, **예수**의 천국 개념이 그 안에 지금 잠들어 있다. 신성한 형제관계의 천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비가 눈에 덜 띄는 변형 단계의 피조물을 거쳐서 결국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되듯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 긴 동면{冬眠}에서 깨어날 것이다.

the larval stage of the thwarted spiritual kingdom, which will carry it through this material age and over into a more spiritual dispensation where the Master's teachings may enjoy a fuller opportunity for development. Thus does the so-called Christian church become the cocoon in which the kingdom of Jesus' concept now slumbers. The kingdom of the divine brotherhood is still alive and will eventually and certainly come forth from this long submergence, just as surely as the butterfly eventually emerges as the beautiful unfolding of its less attractive creature of metamorphic development.

제 171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 170

유랜시아 책

17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71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섹션

소개

1. 펠라에서 떠남
2. 비용 계산
3. 베레아 여행
4. 리비아에서 가르침
5. 여리고의 맹인
6. 삭개오를 방문함
7. “예수께서 지나가면서”
8. 므나의 비유

PAPER 171

ON THE WAY 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parture from Pella
2. On Counting the Cost
3. The Perea Tour
4. Teaching at Livias
5. The Blind Man at Jericho
6. The Visit to Zaccheus
7. “As Jesus Passed By”
8. Parable of the Pounds

소개

잊지 못할 “하늘 나라”에 관한 설교가 있던 다음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도중에 베레아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천국에 관한 강연과, 그가 유월절에 참석하려 한다는 발표는, 전체 추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지배하는 현세적 나라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물질적 성질에 관해 무슨 말씀을 했더라도, 유대인 청중의 마음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어떤 종류의 국가 정부를 메시야가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추종자들 대부분을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었을 뿐이며; 주님의 강론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지도자들은, 내적 천국, 즉 “너희 안에 있는 하늘 나라”에 관한 그의 교훈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들 역시 주님이 또 다른 미래의 나라를 말

INTRODUCTION

171:0.1 (1867.1) THE day after the memorable sermon on “The Kingdom of Heaven,” Jesus announced that on the following day he and the apostles would depart for the Passover at Jerusalem, visiting numerous cities in southern Perea on the way.

171:0.2 (1867.2) The address on the kingdom and the announcement that he was going to the Passover set all his followers to thinking that he was going up to Jerusalem to inaugurate the temporal kingdom of Jewish supremacy. No matter what Jesus said about the nonmaterial character of the kingdom, he could not wholly remove from the minds of his Jewish hearers the idea that the Messiah was to establish some kind of nationalistic government with headquarters at Jerusalem.

171:0.3 (1867.3) What Jesus said in his Sabbath sermon only tended to confus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very few were enlightened by the Master’s discourse. The leaders understood something of his teachings regarding the inner kingdom,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but

숨했던 것을 알았고,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한다고 믿었다. 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가 **유대인**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주님**이 곧 다시 이 세상에 큰 능력과 장엄한 영광과 함께 와서, 약속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사도인 두 아들과 함께 **동양**의 군주에게 나아가는 듯한 태도로 **예수**께 와서, 자기가 요청하려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예수**께서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려 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니, 나의 이 아들들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어서, 당신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당신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도록, 미리 내게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요청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여자여,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추구하는 두 사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알고 사랑했으므로; 너희 어머니 집에서 내가 살았으므로;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안드레**가 너희를 배정했으므로;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내게 몰래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여, 부적절한 이 요청을 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묻겠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슬프며; 내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 가슴 아프며;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게 이런 요청을 하게 하니 실망스럽지만;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너희도 정말 내 쓴 잔을 마실 것이고, 내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하겠으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영예는 내 **아버지**께서 선정하실 자들을 위해 예비돼 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 회담 내용을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먼저 발탁되리라 한 것과,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했다.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말씀했다: “이방인 관리들이 백성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 그리고 지위 높은 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도 잘 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갖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너희의 종이 되라.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은

they also knew that he had spoken about another and future kingdom, and it was this kingdom they believed he was now going up to Jerusalem to establish. When they were disappointed in this expectation, when he was rejected by the Jews, and later on, when Jerusalem was literally destroyed, they still clung to this hope, sincerely believing that the Master would soon return to the world in great power and majestic glory to establish the promised kingdom.

171:0.4 (1867.4) It was on this Sunday afternoon that Salome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Zebedee came to Jesus with her two apostle sons and, in the manner of approaching an Oriental potentate, sought to have Jesus promise in advance to grant whatever request she might make. But the Master would not promise; instead, he asked her,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n answered Salome: “Master, now that you are going up to Jerusalem to establish the kingdom, I would ask you in advance to promise me that these my sons shall have honor with you, the one to sit on your right hand and the other to sit on your left hand in your kingdom.”

171:0.5 (1867.5) When Jesus heard Salome's request, he said: “Woman, you know not what you ask.” And then, looking straight into the eyes of the two honor-seeking apostles, he said: “Because I have long known and loved you; because I have even lived in your mother's house; because Andrew has assigned you to be with me at all times; therefore do you permit your mother to come to me secretly, making this unseemly request. But let me ask you: Are you able to drink the cup I am about to drink?” And without a moment for thought, James and John answered, “Yes, Master, we are able.” Said Jesus: “I am saddened that you know not why we go up to Jerusalem; I am grieved that you understand not the nature of my kingdom; I am disappointed that you bring your mother to make this request of me; but I know you love me in your hearts; therefore I declare that you shall indeed drink of my cup of bitterness and share in my humiliation, but to sit on my right hand and on my left hand is not mine to give. Such honors are reserved for those who have been designated by my Father.”

171:0.6 (1868.1) By this time someone had carried word of this conference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nd they were highly indignant that James and John would seek to be preferred before them, and that they would secretly go with their mother to make such a request. When they fell to arguing among themselves, Jesus called them all together and said: “You well understand how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ir subjects, and how those who are great exercise authority. But it shall not be so in the kingdom of heaven. Whos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let him first become your servant. He who would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그리고 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갔다. 그날 저녁, **베드로**가 애쓴 결과로, **아고보**와 **요한**이 열 명의 사도 앞에서 적절히 사과했고, 형제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달도 못돼서, 한 쪽에는 죽어 가는 강도, 그리고 다른 쪽에는 다른 범법자와 함께 **로마** 십자가에 달리리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있던 그들의 어머니는, 사도인 자기 아들들을 위해 너무 어리석게 구했던, 영예를 바라면서 **펠라**에서 **예수**께 했던 그 어리석은 간청을 잘 기억했다.

1. 펠라에서 떠남

3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펠라** 야영지를 최종적으로 떠났으며, **아브넬**의 동역자들이 일하는 **베레아** 남부의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70인을 방문하면서 두 주 이상 보냈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주님이 **펠라**를 떠날 무렵에, 사도들과 함께 야영지에 같이 있던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여리고**로 가는 **요단강** 길에서, **예수**께서 **헤시본**으로 가려함을 알자, “비용을 계산하라”는 **주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무리 가운데 반 정도가 그를 떠났다. 나머지 반 정도의 무리는, **베레아** 남쪽 성읍들을 방문하면서 두 주 동안 그를 따라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체로,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펠라** 야영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의 왕권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을 결코 파악할 수 없었으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더라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유대인** 관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다윗 세베대는 **사도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3월 15일 수요일에, **펠라**에 있는 방문자용 야영지를 철수했다. 이 무렵에 거의 4천 명이나 되는 방문자가 기거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의 야영지라고 알려진 곳에 천 명 이상의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그들은 **예수**와 열두 사도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무척 싫어했지만, 모든 장비를 여러 구매자에게 팔아서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돈을 나중에 **가롯 유다**에게 전했다.

be first in the kingdom, let him become your minister. I declare to you that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to but to minister; and I now go up to Jerusalem to lay down my life in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and in the service of my brethren.” When the apostles heard these words,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pray. That evening, in response to the labors of Peter, James and John made suitable apologies to the ten and were restored to the good graces of their brethren.

171:0.7 (1868.2) In asking for places on the right hand and on the left hand of Jesus at Jerusalem, the sons of Zebedee little realized that in less than one month their beloved teacher would be hanging on a Roman cross with a dying thief on one side and another transgressor on the other side. And their mother, who was present at the crucifixion, well remembered the foolish request she had made of Jesus at Pella regarding the honors she so unwisely sought for her apostle sons.

1. THE DEPARTURE FROM PELLA

171:1.1 (1868.3) On the forenoon of Monday, March 13,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took final leave of the Pella encampment, starting south on their tour of the cities of southern Perea, where Abner's associates were at work. They spent more than two weeks visiting among the seventy and then went directly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171:1.2 (1868.4) When the Master left Pella, the disciples encamped with the apostles, about one thousand in number, followed after him. About one half of this group left him at the Jordan ford on the road to Jericho when they learned he was going over to Heshbon, and after he had preached the sermon on “Counting the Cost.” They went on up to Jerusalem, while the other half followed him for two weeks, visiting the towns in southern Perea.

171:1.3 (1868.5) In a general way, most of Jesus' immediate followers understood that the camp at Pella had been abandoned, but they really thought this indicated that their Master at last intended to go to Jerusalem and lay claim to David's throne. A large majority of his followers never were able to grasp any other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no matter what he taught them, they would not give up this Jewish idea of the kingdom.

171:1.4 (1868.6)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the Apostle Andrew, David Zebedee closed the visitors' camp at Pella on Wednesday, March 15. At this time almost four thousand visitors were in residence, and this does not include the one thousand and more persons who sojourned with the apostles at what was known as the teachers' camp, and who went south with Jesus and the twelve. Much as David disliked to do it, he sold the entire equipment to numerous buyers and

다윗은 비극적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십자가형이 있는 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벳새다**로 돌아갔다. **예수**와 사도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머물렀고,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바리새인**의 태도 때문에 아주 심하게 동요됐다. **안드레**는 **다윗**에게 연락 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었으며; 모든 사람은 이것을 천국이 **예루살렘**에 곧 설립되려는 표시라고 해석했다. **다윗**은 할 일이 없어졌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분개하면서 걱정하는 대상인 **나사로**가 이윽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피신하자, 자천(自薦)해서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려 했다. 따라서 **다윗**은, 그 부활 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있다가,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돕고 나서, 곧 **필라델피아**로 떠났으며; **아브넬** 및 **나사로**와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는데, **아브넬**이 살아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뒀던 천국의 많은 이익금을 모두 관리하는 재정 감독이 됐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얼마 안 돼서, **안디옥**이 **바울**의 **그리스도교** 본부가 된 반면, **필라델피아**는 **아브넬**의 하늘 나라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예수**의 교훈과 **예수**에 관한 **바울**의 개정판(改訂版)이 **안디옥**에서 서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하늘 나라에 관한 **아브넬**의 개정판을 따르는 선교사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예수**의 교훈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이 사자(使者)들이, 후일에 갑자기 일어난 **이슬람**에 압도당하는 시기까지 계속됐다.

2. 비용 계산

예수와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추종자가, 한 때 **베다바라**로 불렸던 **요단**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곧바로 가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뭇거리며 서로 토의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아주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비용 계산”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그 강론을 전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지금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값을 기꺼이 치려야 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 아내, 자식, 및 형제자매를 기꺼이 버려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아**

proceeded with the funds to Jerusalem, subsequently turning the money over to Judas Iscariot.

171:1.5 (1869.1) David was present in Jerusalem during the tragic last week, taking his mother back with him to Bethsaida after the crucifixion. While awaiting Jesus and the apostles, David stopped with Lazarus at Bethany and became tremendously agit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Pharisees had begun to persecute and harass him since his resurrection. Andrew had directed David to discontinue the messenger service; and this was construed by all as an indication of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at Jerusalem. David found himself without a job, and he had about decided to become the self-appointed defender of Lazarus when presently the object of his indignant solicitude fled in haste to Philadelphia. Accordingly, sometime after the resurrection and also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David betook himself to Philadelphia, having first assisted Martha and Mary in disposing of their real estate; and there, in association with Abner and Lazarus, he spent the remainder of his life, becoming the financial overseer of all those large interests of the kingdom which had their center at Philadelphia during the lifetime of Abner.

171:1.6 (1869.2) Within a short time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tioch became the headquarters of *Pauline Christianity*, while Philadelphia remained the center of the *Abnerian kingdom of heaven*. From Antioch the Pauline version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about Jesus spread to all the Western world; from Philadelphia the missionaries of the Abnerian ver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spread throughout Mesopotamia and Arabia until the later times when these uncompromising emissaries of the teachings of Jesus were overwhelmed by the sudden rise of Islam.

2. ON COUNTING THE COST

171:2.1 (1869.3) When Jesus and the company of almost one thousand followers arrived at the Bethany ford of the Jordan sometimes called Bethabara, his disciples began to realize that he was not going directly to Jerusalem. While they hesitated and debated among themselves, Jesus climbed upon a huge stone and delivered that discourse which has become known as “Counting the Cost.” The Master said:

171:2.2 (1869.4) “You who would follow after me from this time on, must be willing to pay the price of wholehearted dedication to the doing of my Father’s will. If you would be my disciples, you must be willing to forsake father, mother, wife,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If any one of you would now be my disciple, you must be willing to

버지 뜻을 행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너희가 온전한 값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도저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길을 더 가기 전에,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땅에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기초를 놓은 다음에, 시작은 했지만 완성할 수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웃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비웃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칠 수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듯,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일만 명의 군사로 이만 명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의논하지 않겠느냐? 그 왕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적을 이길 수 없으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할 조건을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가르침을 듣고 업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며; 모진 박해에 직면해야 할 것이고, 짓누르는 실망감 앞에서 복음을 증거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희가 마음 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했다면, **사람의 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거부당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의 손에 넘겨질 때, 너희가 당장 만드시 부딪치게 될 그 외관상의 승리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만 할 것이다.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세속적인 마음을 먹고 있다면,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양념은 쓸모없어서; 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예비 되고 있는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이끌고 **헤시본** 쪽으로 떠났으며, 500명가량 되는 사람이 뒤따랐다. 절반의 다른 대중은 잠시 지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들은 수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많이 상고했지만, 이 역경과 시험이 잠시 있은 후에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

give up even your life just as the Son of Man is about to offer up his life for the completion of the mission of doing the Father's will on earth and in the flesh.

171:2.3 (1869.5) “If you are not willing to pay the full price, you can hardly be my disciple. Before you go further, you should each sit down and count the cost of being my disciple. Which one of you would undertake to build a watchtower on your lands without first sitting down to count up the cost to see whether you had money enough to complete it? If you fail thus to reckon the cost, after you have laid the foundation, you may discover that you are unable to finish that which you have begun, and therefore will all your neighbors mock you, saying, ‘Behold, this man began to build but was unable to finish his work.’ Again, what king, when he prepares to make war upon another king, does not first sit down and take counsel as to whether he will be able, with ten thousand men, to meet him who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If the king cannot afford to meet his enemy because he is unprepared, he sends an embassy to this other king, even when he is yet a great way off, asking for terms of peace.

171:2.4 (1879.1) “Now, then, must each of you sit down and count the cost of being my disciple. From now on you will not be able to follow after us, listening to the teaching and beholding the works; you will be required to face bitter persecutions and to bear witness for this gospel in the face of crushing disappointment. If you are unwilling to renounce all that you are and to dedicate all that you have, then are you unworthy to be my disciple. If you have already conquered yourself within your own heart, you need have no fear of that outward victory which you must presently gain when the Son of Man is rejected by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and is given into the hands of mocking unbelievers.

171:2.5 (1879.2) “Now should you examine yourself to find out your motive for being my disciple. If you seek honor and glory, if you are worldly minded, you are like the salt when it has lost its savor. And when that which is valued for its saltiness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easoned? Such a condiment is useless; it is fit only to be cast out among the refuse. Now have I warned you to turn back to your homes in peace if you are not willing to drink with me the cup which is being prepared. Again and again have I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but you will not believe me.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what I say.”

171:2.6 (1879.3) Immediately after speaking these words, Jesus, leading the twelve, started off on the way to Heshbon, followed by about five hundred. After a brief delay the other half of the multitude went on up to Jerusalem. His apostles, together with the leading disciples, thought much about

직해온 그들의 희망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 왕국이 분명히 세워지리라는 믿음에 여전히 매달렸다.

3. 베레아 여행

예수와 열두 사도, 그리고 따라오는 수백 명의 제자는, 두 주 이상 **베레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70인이 일하는 모든 성읍을 방문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이 살았으며,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므로, 천국 사자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다.

예수께서는 **헤시본**에서 **아브넬**을 만났고, **안드레**는 **유월절** 축제 때문에 70인의 사역이 중단되는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파자들이 자기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여자 단체가 원한다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하라고 **아브넬**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아브넬**이 육신을 입은 **주님**을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주님**은 **아브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애야, 네가 천국에 충실할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네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는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 **유월절**을 위해 올라가기까지 따르는 자들이 매일 줄어들어서, 200명 미만의 사람만 남게 됐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산헤드린**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알렸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그가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간다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들에게 발표했을 때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몹시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졌다가, 입을 다물고 기대하는 이런 태도로 변한 것은, 주로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순간에 **예수**께서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고 적들에게 모욕을 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희망은, **주님**이 영적 주권을 가졌다는 더 깊고 성숙한 신앙과 함께, 측근 추종자들이 용기를 밖으로 보여준 것을 설명하며, 이들은 그가 죽어야 한다는 **산헤드린**의 공개 선포가 있는 마당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를 따라가려고 준비했다.

사도들 대부분과 여러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그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었고, 그를 불멸의 존재이며 이미 죽

these words, but still they clung to the belief that, after this brief period of adversity and trial, the kingdom would certainly be set up somewhat in accordance with their long-cherished hopes.

3. THE PEREAN TOUR

171:3.1 (1870.4) For more than two weeks Jesus and the twelve, followed by a crowd of several hundred disciples, journeyed about in southern Perea, visiting all of the towns wherein the seventy labored. Many gentiles lived in this region, and since few were going up to the Passover feast at Jerusalem,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went right on with their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171:3.2 (1870.5) Jesus met Abner at Heshbon, and Andrew directed that the labors of the seventy should not be interrupted by the Passover feast; Jesus advised that the messengers should go forward with their work in complete disregard of what was about to happen at Jerusalem. He also counseled Abner to permit the women's corps, at least such as desired, to go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last time Abner ever saw Jesus in the flesh. His farewell to Abner was: “My son, I know you will be true to the kingdom, and I pray the Father to grant you wisdom that you may love and understand your brethren.”

171:3.3 (1870.6) As they traveled from city to city, large numbers of their followers deserted to go on to Jerusalem so that, by the time Jesus started for the Passover, the number of those who followed along with him day by day had dwindled to less than two hundred.

171:3.4 (1871.1) The apostles understood that Jesus was going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They knew that the Sanhedrin had broadcast a message to all Israel that he had been condemned to die and directing that anyone knowing his whereabouts should inform the Sanhedrin; and yet, despite all this, they were not so alarmed as they had been when he had announced to them in Philadelphia that he was going to Bethany to see Lazarus. This change of attitude from that of intense fear to a state of hushed expectancy was mostly because of Lazarus's resurrection. They ha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Jesus might, in an emergency, assert his divine power and put to shame his enemies. This hope, coupled with their more profound and mature faith in the spiritual supremacy of their Master, accounted for the outward courage displayed by his immediate followers, who now made ready to follow him into Jerusalem in the very face of the open declaration of the Sanhedrin that he must die.

171:3.5 (1871.2)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and many of his inner disciples did not believe it possible for Jesus to die; they, believing that he

음에 대해 승리를 얻은 존재로 간주했다.

4. 리비아에서 가르침

3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예수** 및 그를 따르는 자들은 **베레아** 남부 도시들을 방문하는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에서 야영했다. **열심당 시몬**과 **시몬 베드로**는 100개 이상의 칼을 여기서 넘겨받기로 공모해 오다가, 이 무기를 받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면서 외투 밑에 감춰 착용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날 밤 **리비아**에서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동산에서 배반당한 그 밤까지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예수**께서 **안드레**를 불러서 말씀했다: “네 형제들을 깨워라!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도 받아서 무기로 지니고 있는 칼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일을 알고 있음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안드레**가 동역자들을 깨웠고, 그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애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시간에 필요할만한 것을 너희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불확실한 육신적인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시험에 대해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만 따로 이곳에 불러낸 것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말하고자함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 제사장과 종교 관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재판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채찍질할 것이며, 결국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당황하지 마라,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해 온 것을 스스로 주의하고 기억하라.”

사도들은 또 다시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나; 그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주님**이 말씀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 땅의 현세적 왕국 때문에 눈이 멀었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했는지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이 말씀에 관해 그에게 묻지 못했다. 당황한 사도들은, **주님**이 예상되는 십자가형을 분명히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그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regarded him as immortal and already triumphant over death.

4. TEACHING AT LIVIAS

171:4.1 (1871.3) On Wednesday evening, March 29, Jesus and his followers encamped at Livias on their way to Jerusalem, after having completed their tour of the cities of southern Perea. It was during this night at Livias that Simon Zelotes and Simon Peter, having conspired to have delivered into their hands at this place more than one hundred swords, received and distributed these arms to all who would accept them and wear them concealed beneath their cloaks. Simon Peter was still wearing his sword on the night of the Master's betrayal in the garden.

171:4.2 (1871.4) Early on Thursday morning before the others were awake, Jesus called Andrew and said: “Awaken your brethren! I have something to say to them.” Jesus knew about the swords and which of his apostles had received and were wearing these weapons, but he never disclosed to them that he knew such things. When Andrew had aroused his associates, and they had assembled off by themselves, Jesus said: “My children, you have been with me a long while, and I have taught you much that is needful for this time, but I would now warn you not to put your trust in the uncertainties of the flesh nor in the frailties of man's defense against the trials and testing which lie ahead of us. I have called you apart here by yourselves that I may once more plainly tell you that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where you know the Son of Man has already been condemned to death. Again am I telling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religious rulers; that they will condemn him and then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And so will they mock the Son of Man, even spit upon him and scourge him, and they will deliver him up to death. And when they kill the Son of Man, be not dismayed, for I declare that on the third day he shall rise. Take heed to yourselves and remember that I have forewarned you.”

171:4.3 (1871.5) Again were the apostles amazed, stunned; but they could not bring themselves to regard his words as literal; they could not comprehend that the Master meant just what he said. They were so blinded by their persistent belief in the temporal kingdom on earth, with headquarters at Jerusalem, that they simply could not — would not — permit themselves to accept Jesus' words as literal. They pondered all that day as to what the Master could mean by such strange pronouncements. But none of them dared to ask him a question concerning these statements. Not until after his death did these bewildered apostles

바로 이곳 **리비아**에서, 어떤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아침식사 직후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이 지역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세레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피하시도록 이 말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진 **헤롯**은, **산헤드린**이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를 정죄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든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후자 쪽을 진심으로 원했는데, 그를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죽여야만 할 처지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말을 다 들은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는 **헤롯**에 관해,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관해 잘 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 받고 제사장들의 손에 죽는 것을 더 좋아하며; **세레 요한**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서도,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내일은 **유대지방**으로 가며, 며칠 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 **사람의 아들**도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종교적 편견과 영적 무지의 결과로 희생되기 위해, **아버지** 집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네 자녀를 함께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여러 번 보려고 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마친 후에, 둘러서있는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뤄지게 하자.”

이날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간 사람은 혼동되고 당황한 신자 무리였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천국에 관련하여 선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만 식별할 수 있었을 뿐이며, 단지 임박한 패배에 대한 경고를 스스로 파악할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소하고 불쾌한 예비 충

wake up to the realization that the Master had spoken to them plainly and directly in anticipation of his crucifixion.

171:4.4 (1872.1) It was here at Livias, just after breakfast, that certain friendly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Flee in haste from these parts, for Herod, just as he sought John, now seeks to kill you. He fears an uprising of the people and has decided to kill you. We bring you this warning that you may escape.”

171:4.5 (1872.2) And this was partly true. The resurrection of Lazarus frightened and alarmed Herod, and knowing that the Sanhedrin had dared to condemn Jesus, even in advance of a trial, Herod made up his mind either to kill Jesus or to drive him out of his domains. He really desired to do the latter since he so feared him that he hoped he would not be compelled to execute him.

171:4.6 (1872.3) When Jesus heard what the Pharisees had to say, he replied: “I well know about Herod and his fear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But, mistake not, he would much prefer that the Son of Man go up to Jerusalem to suffer and die at the hands of the chief priests; he is not anxious, having stained his hands with the blood of John, to becom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on of Man. Go you and tell that fox that the Son of Man preaches in Perea today, tomorrow goes into Judea, and after a few days, will be perfected in his mission on earth and prepared to ascend to the Father.”

171:4.7 (1872.4) Then turning to his apostles, Jesus said: “From olden times the prophets have perished in Jerusalem, and it is only befitting that the Son of Man should go up to the city of the Father’s house to be offered up as the price of human bigotry and as the result of religious prejudice and spiritual blindness. O Jerusalem, Jerusalem, which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e teachers of truth!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even as a hen gathers her own brood under her wings, but you would not let me do it! Behold, your house is about to be left to you desolate! You will many times desire to see me, but you shall not. You will then seek but not find me.” And when he had spoken, he turned to those around him and said: “Nevertheless, let us go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Passover and do that which becomes us in fulfill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71:4.8 (1872.5) It was a confused and bewildered group of believers who this day followed Jesus into Jericho. The apostles could discern only the certain note of final triumph in Jesus’ declarations regarding the kingdom; they just could not bring themselves to that place where they were willing to grasp the warnings of the impending setback. When Jesus spoke of “rising on the third day,” they seized upon this statement as signifying a

돌이 있는 직후에, 그 왕국이 확실히 승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또는 “그 후에 곧”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살 아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왕국의 소생”을 언급했다고 생각했다.

이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유대인**은 수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죽음으로 이루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반면, 이런 괴로운 중여 기간에 **주님**을 격려해 준 것은 변형에 대한 기억이었다.

5. 여리고의 맹인

3월 30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200여 추종자의 선두에 서서, **여리고** 성벽에 도착했다. 그들이 성문 가까이 왔을 때, 거지 떼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눈이 먼 **바디메오**라는 한 노인이 있었다. 눈 먼 이 거지는 **예수**에 대해 많이 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소경 **요시아**를 치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그가 **베다니**에 갔을 때, **예수**께서 지난번에 **여리고**를 방문했음을 알게 됐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다시 **여리고**에 오신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붙들고 늘어지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이 그를 만나러 몰려 나갔다. 이렇게 인파가 **주님**을 호위하면서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바디메오**는 대중의 큰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기 드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가까이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거지들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 높여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 “**예수여,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치자,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서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으며;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소경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 **예수**께서 그를 보자 친구들에게 말씀했다: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했다: “기운을 내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고, 외투를 벗어 던지면서 길 한 가운데로 뛰쳐나갔으며,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갔다. **바디메오**를 가리키며 **예수**께서

sure triumph of the kingdom immediately following an unpleasant preliminary skirmish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 “third day” was a common Jewish expression signifying “presently” or “soon thereafter.” When Jesus spoke of “rising,” they thought he referred to the “rising of the kingdom.”

171:4.9 (1872.6) Jesus had been accepted by these believers as the Messiah, and the Jews knew little or nothing about a suffering Messiah.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was to accomplish many things by his death which could never have been achieved by his life. While it was the resurrection of Lazarus that nerved the apostles to enter Jerusalem, it was the memory of the transfiguration that sustained the Master at this trying period of his bestowal.

5. THE BLIND MAN AT JERICO

171:5.1 (1873.1) Late on the afternoon of Thursday, March 30, Jesus and his apostles, at the head of a band of about two hundred followers, approached the walls of Jericho. As they came near the gate of the city, they encountered a throng of beggars, among them one Bartimeus, an elderly man who had been blind from his youth. This blind beggar had heard much about Jesus and knew all about his healing of the blind Josiah at Jerusalem. He had not known of Jesus' last visit to Jericho until he had gone on to Bethany. Bartimeus had resolved that he would never again allow Jesus to visit Jericho without appealing to him for the restoration of his sight.

171:5.2 (1873.2) News of Jesus' approach had been heralded throughout Jericho, and hundreds of the inhabitants flocked forth to meet him. When this great crowd came back escorting the Master into the city, Bartimeus, hearing the heavy tramping of the multitude, knew that something unusual was happening, and so he asked those standing near him what was going on. And one of the beggars replied,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When Bartimeus heard that Jesus was near, he lifted up his voice and began to cry aloud, “Jesus, Jesus, have mercy upon me!” And as he continued to cry louder and louder, some of those near to Jesus went over and rebuked him, requesting him to hold his peace; but it was of no avail; he cried only the more and the louder.

171:5.3 (1873.3) When Jesus heard the blind man crying out, he stood still. And when he saw him, he said to his friends, “Bring the man to me.” And then they went over to Bartimeus, saying: “Be of good cheer; come with us, for the Master calls for you.” When Bartimeus heard these words, he threw aside his cloak, springing forward toward the center of the road, while those near by guided him to Jesus. Addressing Bartimeus, Jesus said:

말씀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까?” 그러자 그 소경이 대답했다: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간청을 듣자 그의 신앙을 보고 말씀했다: “보게 될 것이니;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온전하게 했소.” 그는 즉시 보게 되어, **예수** 곁에 남아서, 다음 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그 후에 대중 앞에 먼저 가면서, 어떻게 하여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됐는지를 큰 소리로 외쳤다.

6. 삭개오를 방문함

주님을 따르는 행렬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고, **주님**은 그날 밤 거기에 머물고자 했다. **예수**께서 세관 옆을 지나갈 때, 세리장{稅吏將}인 세금 징수원 **삭개오**가 우연히 거기에 있었고, **예수**를 뵈시 보고 싶어 했다. 이 세리장은 큰 부자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에 관해 많은 것을 들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겠다고 결심했으며; 따라서, **삭개오**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고, 그의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 머리 위로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리장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도시 한 가운데 이를 때까지, 무리를 뒤쫓아 갔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려 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 있는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주님**을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말씀했기 때문이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면서 급히 내려왔으며, **예수**께 가서, **주님**이 자기 집에 머물러 하심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즉시 **삭개오**의 집으로 갔고, **여리고**에 사는 자들은, **예수**께서 세리장과 함께 있기로 제정한 것에 무척 놀랐다. **주님**과 사도들이 **삭개오**와 함께 아직 그의 문 앞에서 거닐고 있을 때, **여리고**의 **바리새인** 하나가 가까이 서서 말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백성을 강요하면서 강탈하는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삭개오**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의자 위에 서서 말했다: “**여리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위대한 신 **주님**께서 내 집에 머물려고 오셨으며; 그분이 들어가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아무에게나 잘못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n answered the blind man, “I would have my sight restored.” And when Jesus heard this request and saw his faith, he said: “You shall receive your sight;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he remained near Jesus, glorifying God, until the Master started on the next day for Jerusalem, and then he went before the multitude declaring to all how his sight had been restored in Jericho.

6. THE VISIT TO ZACCHEUS

171:6.1 (1873.4) When the Master's procession entered Jericho, it was nearing sundown, and he was minded to abide there for the night. As Jesus passed by the customs house, Zaccheus the chief publican, or tax collector, happened to be present, and he much desired to see Jesus. This chief publican was very rich and had heard much about this prophet of Galilee. He had resolved that he would see what sort of a man Jesus was the next time he chanced to visit Jericho; accordingly, Zaccheus sought to press through the crowd, but it was too great, and being short of stature, he could not see over their heads. And so the chief publican followed on with the crowd until they came near the center of the city and not far from where he lived. When he saw that he would be unable to penetrate the crowd, and thinking that Jesus might be going right on through the city without stopping,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whose spreading branches overhung the roadway. He knew that in this way he could obtain a good view of the Master as he passed by. And he was not disappointed, for, as Jesus passed by, he stopped and, looking up at Zaccheus, said: “Make haste, Zaccheus, and come down, for tonight I must abide at your house.” And when Zaccheus heard these astonishing words, he almost fell out of the tree in his haste to get down, and going up to Jesus, he expressed great joy that the Master should be willing to stop at his house.

171:6.2 (1874.1) They went at once to the home of Zaccheus, and those who lived in Jericho were much surprised that Jesus would consent to abide with the chief publican. Even while the Master and his apostles lingered with Zaccheus before the door of his house, one of the Jericho Pharisees, standing near by, said: “You see how this man has gone to lodge with a sinner, an apostate son of Abraham who is an extortioner and a robber of his own people.”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looked down at Zaccheus and smiled. Then Zaccheus stood upon a stool and said: “Men of Jericho, hear me! I may be a publican and a sinner, but the great Teacher has come to abide in my house; and before he goes in, I tell you that I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義)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는 인과에게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강도들의 길”을 따라서 **베다니**까지 올라갔다.

7. “예수께서 지나가면서”

예수께서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웠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동역자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항상 감탄했다. 너희가 우아함을 연마할 수 있지만, 인자함은 사랑이_가득한 혼에서 발산되는 호의(好意)라는 향기다.

선함은 항상 경의를 이끌어내지만, 은혜가 결여되면 종종 애정을 쫓아낸다. 선함은 그것이 호의적일 때에만 보편적으로 매력적이다. 선함은 오직 그것이 매력적일 때에만 효과가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했으며; 그러므로 참된 호의를 나타내고 진정한 연민의 정을 보였다. 그러나 동정심에 빠진 적은 별로 없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호의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그가 고통에 익숙했다고 해서 무관심해진 적은 없었으며, 고통 받는 혼들에게 자신을_불쌍히 여기는 느낌을 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돌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진지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척 도울 수 있었다. 각각의 남녀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런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 때문이었다—그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충분히 알았다. 그는 흥미를 가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노련하게 납득했고, 인간이 바라는 것을 현명하게 간파했다.

예수께서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지나가면서” 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지녔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매력적인 경청자였다. 동역자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할 용의가 전혀 없었다. 그가 굶주린 정신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을 돌볼 때, 그의 자비를 받은

am going to bestow one half of all my goods upon the poor, and beginning tomorrow, if I have wrongfully exacted aught from any man, I will restore fourfold. I am going to seek salvation with all my heart and learn to do righteousness in the sight of God.”

171:6.3 (1874.2) When Zaccheus had ceased speaking, Jesus said: “Today has salvation come to this home, and you have become indeed a son of Abraham.” And turning to the crowd assembled about them, Jesus said: “And marvel not at what I say nor take offense at what we do, for I have all along declared that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is lost.”

171:6.4 (1874.3) They lodged with Zaccheus for the night. On the morrow they arose and made their way up the “road of robbers” to Bethany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at Jerusalem.

7. “AS JESUS PASSED BY”

171:7.1 (1874.4) Jesus spread good cheer everywhere he went. H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His associates never ceased to wonder at the gracious words that proceeded out of his mouth. You can cultivate gracefulness, but graciousness is the aroma of friendliness which emanates from a love-saturated soul.

171:7.2 (1874.5) Goodness always compels respect, but when it is devoid of grace, it often repels affection. Goodness is universally attractive only when it is gracious. Goodness is effective only when it is attractive.

171:7.3 (1874.6) Jesus really understood men; therefore could he manifest genuine sympathy and show sincere compassion. But he seldom indulged in pity. While his compassion was boundless, his sympathy was practical, personal, and constructive. Never did his familiarity with suffering breed indifference, and he was able to minister to distressed souls without increasing their self-pity.

171:7.4 (1874.7) Jesus could help men so much because he loved them so sincerely. He truly loved each man, each woman, and each child. He could be such a true friend because of his remarkable insight — he knew so fully what was in the heart and in the mind of man. He was an interested and keen observer. He was an expert in the comprehension of human need, clever in detecting human longings.

171:7.5 (1874.8) Jesus was never in a hurry. He had time to comfort his fellow men “as he passed by.” And he always made his friends feel at ease. He was a charming listener. He never engaged in the meddlesome probing of the souls of his associates. As he comforted hungry minds and

자들은 그에게 참회한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무한히 신뢰했다.

그는 사람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시하거나 조종하거나 제촉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기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자기 신뢰와 강한 용기를 고취시켰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매우 현명하게 매우 많이 사랑했으므로,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방법을 종종 돋보이게 했다.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그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더 나은 것들에 호소했다.

주님은, 자기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댄으로써 치유 받고자 했던 여자의 미개한 미신적 행위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분간할 수 있었다. 어느 한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설교를 중단하고 대중을 기다리게 할 준비가 항상 돼있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예수**를 신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을 무척 신뢰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나가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런 사역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되거나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건강을 나눠주고 행복을 뿌렸다. “그가 부지런히 선을 행했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지나가면서” 섬기기--곧 일상적인 자기 임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8. 므나의 비유

지난밤에 **예수**께서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늦게까지 자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정오 가까이 돼서야 **여리고**를 떠났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멈췄으나, 대중은 **예수**와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묵으려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길을 갔다.

모든 제자를 위해 예정됐던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므나에 관한 비유는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대체로 **아켈라오**의 체험과, **유대지방** 왕국의 통치권을 얻으려고 그가 헛되이

ministered to thirsty souls, the recipients of his mercy did not so much feel that they were confessing to him as that they were conferring with him. They had unbounded confidence in him because they saw he had so much faith in them.

171:7.6 (1875.1) He never seemed to be curious about people, and he never manifested a desire to direct, manage, or follow them up. He inspired profound self-confidence and robust courage in all who enjoyed his association. When he smiled on a man, that mortal experienced increased capacity for solving his manifold problems.

171:7.7 (1875.2) Jesus loved men so much and so wisely that he never hesitated to be severe with them when the occasion demanded such discipline. He frequently set out to help a person by asking for help. In this way he elicited interest, appealed to the better things in human nature.

171:7.8 (1875.3) The Master could discern saving faith in the gross superstition of the woman who sought healing by touching the hem of his garment. He was always ready and willing to stop a sermon or detain a multitude while he ministered to the needs of a single person, even to a little child. Great things happened not only because people had faith in Jesus, but also because Jesus had so much faith in them.

171:7.9 (1875.4) Most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which Jesus said or did seemed to happen casually, “as he passed by.” There was so little of the professional, the well-planned, or the premeditated in the Master’s earthly ministry. He dispensed health and scattered happiness naturally and gracefully as he journeyed through life. It was literally true, “He went about doing good.”

171:7.10 (1875.5) And it behooves the Master’s followers in all ages to learn to minister as “they pass by” — to do unselfish good as they go about their daily duties.

8. PARABLE OF THE POUNDS

171:8.1 (1875.6) They did not start from Jericho until near noon since they sat up late the night before while Jesus taught Zaccheus and his family the gospel of the kingdom. About halfway up the ascending road to Bethany the party paused for lunch while the multitude passed on to Jerusalem, not knowing that Jesus and the apostles were going to abide that night on the Mount of Olives.

171:8.2 (1875.7) The parable of the pounds, unlike the parable of the talents, which was intended for all the disciples, was spoken more exclusively to the apostles and was largely based on the experience

시도한 것에 기초했다. **주님**의 비유에서 역사적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아켈라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오**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까웠고, 그의 수로{水路}가, 그들이 **여리고**에서 출발했던 길을 따라 뻗어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왕자가 스스로 한 왕국을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으나,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마음 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했던 그의 영지{領地} 사람들이 한 대사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왕이 현세의 지배권을 거부당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지배권을 거부당할 것이다. 다시 확실히 말하겠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영적 지배권을 수여 받으면, 사람의 혼이 속한 그런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인간 심성이라는 그런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저희를 다스리는 것을 저희가 거부할지라도, 지금 거절당한 그런 영의 나라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기 위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것을, 다음 세대는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귀족처럼, 나도 내 열두 하인, 즉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부르고, 너희 각자의 손에 한 므나씩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때, 너희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내 지시를 잘 유념 하라고, 각자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될지라도, 다른 **아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도록 파송될 것이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의 청지기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희가 얻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너희 모두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 청지기들이 함께 불러가서 결산하게 됐을 때, 첫 사람이 나아와 말했다. ‘**주여**, 당신이 맡기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며; 내가 이 일에 충실했음을 증명했으므로, 열 개의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겠다.’ 둘째가 와서 말했다: ‘**주여**, 내게 맡기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 따라 네가 다섯 성읍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셈하고 마지막 종의 차례가 되어, 셈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한 므나가 있는데, 내가 형짚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

of Archelaus and his futile attempt to gain the rule of the kingdom of Judea. This is one of the few parables of the Master to be founded on an actual historic character. It was not strange that they should have had Archelaus in mind inasmuch as the house of Zaccheus in Jericho was very near the ornate palace of Archelaus, and his aqueduct ran along the road by which they had departed from Jericho.

171:8.3 (1875.8) Said Jesus: “You think that the Son of Man goes up to Jerusalem to receive a kingdom, but I declare that you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Do you not remember about a certain prince who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but even before he could return, the citizens of his province, who in their hearts had already rejected him, sent an embassy after him, saying, ‘We will not have this man to reign over us’? As this king was rejected in the temporal rule, so is the Son of Man to be rejected in the spiritual rule. Again I declare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but if the Son of Man had been accorded the spiritual rule of his people, he would have accepted such a kingdom of men’s souls and would have reigned over such a dominion of human hearts. Notwithstanding that they reject my spiritual rule over them, I will return again to receive from others such a kingdom of spirit as is now denied m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rejected now, but in another age that which the children of Abraham now reject will be received and exalted.

171:8.4 (1876.1) “And now, as the rejected nobleman of this parable, I would call before me my twelve servants, special stewards, and giving into each of your hands the sum of one pound, I would admonish each to heed well my instructions that you trade diligently with your trust fund while I am away that you may have wherewith to justify your stewardship when I return, when a reckoning shall be required of you.

171:8.5 (1876.2) “And even if this rejected Son should not return, another Son will be sent to receive this kingdom, and this Son will then send for all of you to receive your report of stewardship and to be made glad by your gains.

171:8.6 (1876.3) “And when these stewards were subsequently called together for an accounting, the first came forward, saying, ‘Lord, with your pound I have made ten pounds more.’ And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you are a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proved faithful in this matter, I will give you authority over ten cities.’ And the second came, saying, ‘Your pound left with me, Lord, has made five pounds.’ And the master said, ‘I will accordingly make you ruler over five cities.’ And so on down through the others until the last of the servants, on being called to account, reported: ‘Lord, behold, here is your pound, which I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한다고 네가 알았으니, 이런 계산이 네게 있을 것도 알았으리라. 이것을 알았다면, 네가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합당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종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열 프나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는 이미 열 프나를 가졌다고 말하자: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 빼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비유와 지난번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을 너희 마음 속에 잘 생각해 보고, 진정한 의미를 각자 찾아보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생의 기회에 대한 실제 척도는 역량이다. 너희의 재능을 벗어나는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2. 충실함은 인간의 신뢰성에 대한 틀림없는 척도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자신의 재능에 맞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도 똑같은 충실함을 보일 것이다.

3.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적게 충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4. 기회가 적게 주어졌을 때, 충실한 만큼 보상을 수여한다.

그들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따르던 대중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길옆에 있는, 머리 위로 걸쳐 있는 바위 그늘 아래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면서 품위 있는 위엄과 기운찬 태도로 말씀했다: “자,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맞이하자;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은, 필사적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have kept safely done up in this napkin. And this I did because I feared you; I believed that you were unreasonable, seeing that you take up where you have not laid down, and that you seek to reap where you have not sown.’ Then said his lord: ‘You negligent and unfaithful servant, I will judge you out of your own mouth. You knew that I reap where I have apparently not sown; therefore you knew this reckoning would be required of you. Knowing this, you should have at least given my money to the banker that at my coming I might have had it with proper interest.’

171:8.7 (1876.4) “And then said this ruler to those who stood by: ‘Take the money from this slothful servant and give it to him who has ten pounds.’ And when they reminded the master that such a one already had ten pounds, he said: ‘To every one who has shall be given more, but from him who has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171:8.8 (1876.5) And then the apostles sough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this parable and that of the former parable of the talents, but Jesus would only say, in answer to their many questions: “Ponder well these words in your hearts while each of you finds out their true meaning.”

171:8.9 (1876.6) It was Nathaniel who so well taught the meaning of these two parables in the after years, summing up his teachings in these conclusions:

171:8.10 (1876.7) 1. Ability is the practical measure of life’s opportunities. You will never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complishment of that which is beyond your abilities.

171:8.11 (1876.8) 2. Faithfulness is the unerring measure of human trustworthiness. He who is faithful in little things is also likely to exhibit faithfulness in everything consistent with his endowments.

171:8.12 (1876.9) 3. The Master grants the lesser reward for lesser faithfulness when there is like opportunity.

171:8.13 (1877.1) 4. He grants a like reward for like faithfulness when there is lesser opportunity.

171:8.14 (1877.2) When they had finished their lunch, and after the multitude of followers had gone on toward Jerusalem, Jesus, standing there before the apostles in the shade of an overhanging rock by the roadside, with cheerful dignity and a gracious majesty pointed his finger westward, saying: “Come, my brethren, let us go on into Jerusalem, there to receive that which awaits us; thus shall we fulfill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in all things.”

171:8.15 (1877.3) And so Jesus and his apostles resumed this, the Master’s last journey to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Jerusalem in the likeness of the flesh of mortal man.

제 172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 171

유랜시아 책

173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72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섹션

소개

1. 베다니에서 안식일
2. 일요일 아침 사도들과 함께
3.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4. 성전 방문
5. 사도들의 태도

PAPER 172
GOING IN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Sabbath at Bethany
2. Sunday Morning with the Apostles
3. The Start for Jerusalem
4. Visiting about the Temple
5. The Apostles' Attitude

소개

예수와 사도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네 시가 막 지날 때였다. **나사로**, 그의 자매들, 및 친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일같이 올라왔으므로, 이웃에 사는 **시몬**이라는 신자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예수**께 알렸는데, 그는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후로 그 작은 마을을 이끌던 주민이었다.

그날 저녁에, 많은 방문자가 **예수**를 찾아왔고, **베다니**와 **베스페이지**의 서민들은 그가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산헤드린**의 사형 선고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으나, **베다니** 가족은--곧 **나사로**, **마르다**, 및 **마리아**는--**주님**이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님을 더 잘 깨달았으며;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그의 이번 방문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머문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나, 당당하고 침착했으며; 친구들은 그가 그토록 차분하고 기분 좋은 것을

INTRODUCTION

172:0.1 (1878.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at Bethany shortly after four o'clock on Friday afternoon, March 31, A.D. 30. Lazarus, his sisters, and their friends were expecting them; and since so many people came every day to talk with Lazarus about his resurrection, Jesus was informed that arrangements had been made for him to stay with a neighboring believer, one Simon, the leading citizen of the little village since the death of Lazarus's father.

172:0.2 (1878.2) That evening, Jesus received many visitors, and the common folks of Bethany and Bethpage did their best to make him feel welcome. Although many thought Jesus was now going into Jerusalem, in utter defiance of the Sanhedrin's decree of death, to proclaim himself king of the Jews, the Bethany family — Lazarus, Martha, and Mary — more fully realized that the Master was not that kind of a king; they dimly felt that this might be his last visit to Jerusalem and Bethany.

172:0.3 (1878.3) The chief priests were informed that Jesus lodged at Bethany, but they thought best not to attempt to seize him among his friends; they decided to await his coming on into Jerusalem. Jesus knew about all this, but he was majestically calm; his friends had never seen him more

본 적이 없었으며; 사도들조차, **산헤드린**이 모든 **유대인**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가 그토록 태연한 것에 매우 놀랐다. 그날 밤 **주님**이 잠자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짝져서 그를 지켰으며, 그들 가운데 여럿이 칼을 차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수백 명의 순례자 때문에 잠이 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던 **나사로**를 만나러 왔다.

1. 베다니에서 안식일

유대지방 이외의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과 **유대인** 권세자들은 모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축제에 참석할까요?”라고 물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좋아했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다소 난처했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지만, 그의 대담성 때문에 조금 당황했으며; 그가 전에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사로**가 큰 문젯거리가 됐음을 기억했다.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도착을 축하하는 공중 연회에, **베다니**와 **베스페이지**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해 베풀어졌으며; **산헤드린**에 구애받지 않고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음식 시중드는 일을 지시했고; 그 자매 **마리아**는, 공중 연회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위배되므로, 구경하는 여자들 가운데 있었다.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친구들 한가운데서 **예수**를 체포하기는 두려워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옛 사람 **예슈아**에 관해 **시몬**과 이야기하면서, **예슈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말씀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전설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는 벽돌과 돌맹이로 지은 그런 성벽에는 관심이 없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편견, 독선, 및 증오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모든 사도가 평상시와는 달리 냉랭한 것 외에는, 연회가 매우 즐겁게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대로 진행됐다. **예수**께서는 유난히 기뻐했으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잔치가 끝날 무렵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구경꾼 여자 집단에서 앞으로 나아와, 주빈석{主賓席}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예수**께로 가서,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香油}가 들어 있는 큰 흰색 병을 열었으며; **주님**의

composed and congenial; even the apostles were astounded that he should be so unconcerned when the Sanhedrin had called upon all Jewry to deliver him into their hands. While the Master slept that night, the apostles watched over him by twos, and many of them were girded with swords. Early the next morning they were awakened by hundreds of pilgrims who came out from Jerusalem, even on the Sabbath day, to see Jesus and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1. SABBATH AT BETHANY

172:1.1 (1878.4) Pilgrims from outside of Judea, as well as the Jewish authorities, had all been asking: “What do you think? will Jesus come up to the feast?” Therefore, when the people heard that Jesus was at Bethany, they were glad, but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were somewhat perplexed. They were pleased to have him under their jurisdiction, but they were a trifle disconcerted by his boldness; they remembered that on his previous visit to Bethany, Lazar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Lazarus was becoming a big problem to the enemies of Jesus.

172:1.2 (1878.5)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on the evening after the Sabbath, all Bethany and Bethpage joined in celebrating the arrival of Jesus by a public banquet at the home of Simon. This supper was in honor of both Jesus and Lazarus; it was tendered in defiance of the Sanhedrin. Martha directed the serving of the food; her sister Mary was among the women onlookers as it was against the custom of the Jews for a woman to sit at a public banquet. The agents of the Sanhedrin were present, but they feared to apprehend Jesus in the midst of his friends.

172:1.3 (1879.1) Jesus talked with Simon about Joshua of old, whose namesake he was, and recited how Joshua and the Israelites had come up to Jerusalem through Jericho. In commenting on the legend of the walls of Jericho falling down, Jesus said: “I am not concerned with such walls of brick and stone; but I would cause the walls of prejudice, self-righteousness, and hate to crumble before this preaching of the Father’s love for all men.”

172:1.4 (1879.2) The banquet went along in a very cheerful and normal manner except that all the apostles were unusually sober. Jesus was exceptionally cheerful and had been playing with the children up to the time of coming to the table.

172:1.5 (1879.3)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ppened until near the close of the feasting when Mary the sister of Lazarus stepped forward from among the group of women onlookers and, going up to where Jesus reclined as the guest of honor, proceeded to

머리에 바른 후, 향유를 그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그것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온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행한 것에 놀랐다. **나사로는** 아무 말 없었으나, 어떤 사람이 매우 비싼 향유가 그렇게 사용된 것에 분개하면서 투덜거릴 때, **가롯 유다**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낭비를 꾸짖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무엇을 말하는지 들었지만, 결에서 무릎 꿇은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너희는 모두 이 여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가 진심으로 선한 일을 행했음을 알면서,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야한다고 투덜거린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며;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여자는 장사지낼 내 몸을 위해 이 향유를 오랫동안 간직해 왔고, 이제 내 죽음을 예상해서 이 기름을 부었으니, 이 여자가 원하는 바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라는 내 말에 대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너희 모두를 꾸짖었다. 이 여자는 오늘밤 한 행동에 대해 책망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서 저를 기념하라.”

가롯 유다는 이 꾸지람을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 상한 기분에 대해 마침내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생각을 무의식중에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공공연히 그리고 의식적인 정신 속에 감히 품게 됐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이 이런 태도를 갖도록 그를 부추겼는데, 이 향유의 값이 --오천 명에게 빵을 나눠주기에 충분한-- 한 남자의 일 년 수입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고; 시체에 바르는 이 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을 때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기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주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것을 그에게 드리고자 했다.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가 이 감송{甘松} 향유 한 병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이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허락했던 것은, 그들이 부유했으

open a large alabaster cruse of very rare and costly ointment; and after anointing the Master's head, she began to pour it upon his feet as she took down her hair and wiped them with it. The whole house became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and everybody present was amazed at what Mary had done. Lazarus said nothing, but when some of the people murmured, showing indignation that so costly an ointment should be thus used, Judas Iscariot stepped over to where Andrew reclined and said: "Why was this ointment not sold and the money bestowed to feed the poor? You should speak to the Master that he rebuke such waste."

172:1.6 (1879.4) Jesus, knowing what they thought and hearing what they said, put his hand upon Mary's head as she knelt by his side and, with a kindly expression upon his face, said: "Let her alone, every one of you. Why do you trouble her about this, seeing that she has done a good thing in her heart? To you who murmur and say that this ointment should have been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let me say that you have the poor always with you so that you may minister to them at any time it seems good to you; but I shall not always be with you; I go soon to my Father. This woman has long saved this ointment for my body at its burial, and now that it has seemed good to her to make this anointing in anticipation of my death, she shall not be denied such satisfaction. In the doing of this, Mary has reproofed all of you in that by this act she evinces faith in what I have said about my death and ascension to my Father in heaven. This woman shall not be reproofed for that which she has this night done; rather do I say to you that in the ages to come, wherever this gospel shall be preach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

172:1.7 (1879.5) It was because of this rebuke, which he took as a personal reproof, that Judas Iscariot finally made up his mind to seek revenge for his hurt feelings. Many times had he entertained such ideas subconsciously, but now he dared to think such wicked thoughts in his open and conscious mind. And many others encouraged him in this attitude since the cost of this ointment was a sum equal to the earnings of one man for one year — enough to provide bread for five thousand persons. But Mary loved Jesus; she had provided this precious ointment with which to embalm his body in death, for she believed his words when he forewarned them that he must die, and it was not to be denied her if she changed her mind and chose to bestow this offering upon the Master while he yet lived.

172:1.8 (1879.6) Both Lazarus and Martha knew that Mary had long saved the money wherewith to buy this cruse of spikenard, and they heartily approved of her doing as her heart desired in such a matter,

므로 이 정도 현금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나사로**를 위한 만찬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사로**도 반드시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를 살려두고 **예수**만 죽인다면, 아무 소용없으리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for they were well-to-do and could easily afford to make such an offering.

172:1.9 (1880.1) When the chief priests heard of this dinner in Bethany for Jesus and Lazarus, they began to take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what should be done with Lazarus. And presently they decided that Lazarus must also die. They rightly concluded that it would be useless to put Jesus to death if they permitted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to live.

2. 일요일 아침 사도들과 함께

이 일요일 아침에,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주님**은 열두 사도를 가까이 불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마지막 주의사항을 말씀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아파 여러 번 연설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적 사역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자기 곁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줬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가까이 따르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그때에도 몰래 칼을 휴대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 교육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임직식이 있던 후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이날까지, 그들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 간단히 회고하는 것이 포함됐다. 사도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으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베대**는 **펠라** 야영지 장비를 처분해서 얻은 자금을 **가롯 유다**에게 건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지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유다**는 다시 이 돈 대부분을, 그들을 초대했던 **시몬**에게 맡겼다.

사도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말씀을 나누면서, **산헤드린**의 복수심에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피하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나사로**는 이 훈계에 순종하여, 며칠 후 **산헤드린**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필라델피아**로 피신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가는 도중에 위기가 박두했음은 느꼈지만, **주님**의 보기 드문 기쁨과 비범한 아름다운 유머 때문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2. SUNDAY MORNING WITH THE APOSTLES

172:2.1 (1880.2) On this Sunday morning, in Simon's beautiful garden, the Master called his twelve apostles around him and gave them their final instructions preparatory to entering Jerusalem. He told them that he would probably deliver many addresses and teach many lessons before returning to the Father but advised the apostles to refrain from doing any public work during this Passover sojourn in Jerusalem. He instructed them to remain near him and to “watch and pray.” Jesus knew that many of his apostles and immediate followers even then carried swords concealed on their persons, but he made no reference to this fact.

172:2.2 (1880.3) This morning's instructions embraced a brief review of their ministry from the day of their ordination near Capernaum down to this day when they were preparing to enter Jerusalem. The apostles listened in silence; they asked no questions.

172:2.3 (1880.4) Early that morning David Zebedee had turned over to Judas the funds realized from the sale of the equipment of the Pella encampment, and Judas, in turn, had placed the greater part of this money in the hands of Simon, their host, for safekeeping in anticipation of the exigencies of their entry into Jerusalem.

172:2.4 (1880.5) After the conference with the apostles Jesus held converse with Lazarus and instructed him to avoid the sacrifice of his life to the vengeance of the Sanhedrin. It was in obedience to this admonition that Lazarus, a few days later, fled to Philadelphia when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sent men to arrest him.

172:2.5 (1880.6) In a way, all of Jesus' followers sensed the impending crisis, but they were prevented from fully realizing its seriousness by the unusual cheerfulness and exceptional good humor of the Master.

3.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베다니에서 성전까지는 약 2마일 거리였고,

3. THE START FOR JERUSALEM

172:3.1 (1880.7) Bethany was about two miles from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한 시 반쯤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거기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나사렛, 가버나움, 및 예루살렘**은 그를 배척했지만, **베다니**는 그를 환영했고 그를 믿었다. 이 땅에 증여된 동안 가장 엄청난 일, 즉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대부분이 믿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렸다가보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아침 내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공연히 **메시아**로 환영하는 어떤 움직임도 억제해 왔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으며; 육신 속에서의 삶을 끝낼 시기가 가까웠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제자들이 자기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성을 그가 선택한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공공연한 **예루살렘** 입성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또는 최종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제자나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열망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이상한 몽상가의 환상을 일절 거부했으며; 이번 방문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잘 알았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어떤 적당한 방법으로 그런 결심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에 직면했다. **예수**께서는,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고 불리는 다소 모순된 많은 것을 모두 상고했지만, 자신이 따르기에 적당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듯 했다. 이 예언적 표현 대부분은, 한 왕, 즉 **다윗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이며, 외국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구해줄, 대담하고 공격적인 현세적 구원자를 묘사했다. 그러나 **성서** 가운데서 한 권만이, 그의 사역에 대해 더 영적인 개념에서 **메시아**를 관련시켰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획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이 **성서**는 **스가랴**였고,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 “크게 기뻐하라, 오 **시온**의 딸아; 외쳐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가져오신다. 나귀를 타시되, 땅아지, 즉 어린 나귀를 타고 낮은 자로서 오신다.”

전쟁하는 왕은 항상 말 타고 성에 들어가며; 평화와 우호의 사명을 띤 왕은 항상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말을 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대신, 나귀를 탄 **사람의 아들**로서 평화롭게 그리고 선한 뜻을 갖고 기꺼이 들어가려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the temple, and it was half past one that Sunday afternoon when Jesus made ready to start for Jerusalem. He had feelings of profound affection for Bethany and its simple people. Nazareth, Capernaum, and Jerusalem had rejected him, but Bethany had accepted him, had believed in him. And it was in this small village, where almost every man, woman, and child were believers, that he chose to perform the mightiest work of his earth bestowal, the resurrection of Lazarus. He did not raise Lazarus that the villagers might believe, but rather because they already believed.

172:3.2 (1880.8) All morning Jesus had thought about his entry into Jerusalem. Heretofore he had always endeavored to suppress all public acclaim of him as the Messiah, but it was different now; he was nearing the end of his career in the flesh, his death had been decreed by the Sanhedrin, and no harm could come from allowing his disciples to give free expression to their feelings, just as might occur if he elected to make a formal and public entry into the city.

172:3.3 (1881.1) Jesus did not decide to make this public entrance into Jerusalem as a last bid for popular favor nor as a final grasp for power. Neither did he do it altogether to satisfy the human longings of his disciples and apostles. Jesus entertained none of the illusions of a fantastic dreamer; he well knew what was to be the outcome of this visit.

172:3.4 (1881.2) Having decided upon making a public entrance into Jerusalem, the Master wa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hoosing a proper method of executing such a resolve. Jesus thought over all of the many more or less contradictory so-called Messianic prophesies, but there seemed to be only one which was at all appropriate for him to follow. Most of these prophetic utterances depicted a king, the son and successor of David, a bold and aggressive temporal deliverer of all Israel from the yoke of foreign domination. But there was one Scripture that had sometimes been associated with the Messiah by those who held more to the spiritual concept of his mission, which Jesus thought might consistently be taken as a guide for his projected entry into Jerusalem. This Scripture was found in Zechariah, and it said: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comes to you. He is just and he brings salvation. He comes as the lowly one, riding upon an ass, upon a colt, the foal of an ass.”

172:3.5 (1881.3) A warrior king always entered a city riding upon a horse; a king on a mission of peace and friendship always entered riding upon an ass. Jesus would not enter Jerusalem as a man on horseback, but he was willing to enter peacefully and with good will as the Son of Man on a donkey.

172:3.6 (1881.4) Jesus had long tried by direct

않음을, 즉 그것은 순전히 영적 문제임을 명백하게 가르침으로써, 사도와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쉽게 친히 가르침으로 실패했던 것을, 이제는 상징적 호소를 통해서 이루도록 시도하려 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점심 식사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베다니** 북서쪽 큰 길 옆 가까이 있는 이웃 마을인 **베스페이지**로 가라고 지시한 후에 덧붙여 말씀했다: “**베스페이지**로 가서, 사거리 만나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데려와라. 누구든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고만 대답해라.” 그리고 두 사도가 **주님**의 지시대로 **베스페이지**에 갔을 때, 길모퉁이에 있는 집 근처 한가한 길에서 어미 곁에 매여있는 어린 나귀를 발견했다. **베드로**가 어린 나귀를 풀기 시작했을 때, 주인이 다가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물었고, **베드로**가 **주님**이 지시했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시라면, 어린 나귀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돌아왔다.

수백 명의 순례자가 이때까지 **예수**와 사도들 곁에 모여 있었다. 아침나절 중간쯤부터,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전에 그의 심부름꾼이었던 몇몇 동역자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승리의 행진으로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방문 중인 성전 순례자 군중 가운데 거기서 효과적으로 퍼뜨리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 선지자로 많이 알려졌고 이적을 베푸는,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대중은, **감람산** 언덕을 지나서 성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직후에, 성으로 향하는 **예수**와 그 인파를 만났다.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했을 때, 대개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온 제자, 신자, 그리고 방문하기 위한 순례자들로 구성된, 축제에 참석하려는 인파가 크게 열광했다.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초기의 여자 단체에 속했던 열두 명의 여자가 동역자 몇 명과 함께 도착해서 이 광경을 봤으며, 그 성을 향해 기쁨에 넘쳐서 움직이는 이 진기한 행렬에 동참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쌍둥이 형제 **알패오**가 자기 겹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님**이 탈 수 있도록 붙들어드렸다. 행렬이 **감람산** 꼭대기를 향해 움직이자, 축제에 참석하려는 인파는, 왕가(王家)의 **아들**, 즉 약속된 **메시아**를 태우고 있는 나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양탄자를 만들기 위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들을 가져왔다. 즐거워하는 인파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시편**을 한 목소리로 읊으면서, “**다**

teaching to impress upon his apostles and his disciples that his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that it was a purely spiritual matter; but he had not succeeded in this effort. Now, what he had failed to do by plain and personal teaching, he would attempt to accomplish by a symbolic appeal. Accordingly, right after the noon lunch, Jesus called Peter and John, and after directing them to go over to Bethpage, a neighboring village a little off the main road and a short distance northwest of Bethany, he further said: “Go to Bethpage, and when you come to the junction of the roads, you will find the colt of an ass tied there. Loose the colt and bring it back with you. If anyone asks you why you do this, merely say, ‘The Master has need of him.’” And when the two apostles had gone into Bethpage as the Master had directed, they found the colt tied near his mother in the open street and close to a house on the corner. As Peter began to untie the colt, the owner came over and asked why they did this, and when Peter answered him as Jesus had directed, the man said: “If your Master is Jesus from Galilee, let him have the colt.” And so they returned bringing the colt with them.

172:3.7 (1881.5) By this time several hundred pilgrims had gathered around Jesus and his apostles. Since midforenoon the visitors passing by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had tarried. Meanwhile, David Zebedee and some of his former messenger associates took it upon themselves to hasten on down to Jerusalem, where they effectively spread the report among the throngs of visiting pilgrims about the temple that Jesus of Nazareth was making a triumphal entry into the city. Accordingly, several thousand of these visitors flocked forth to greet this much-talked-of prophet and wonder-worker, whom some believed to be the Messiah. This multitude, coming out from Jerusalem, met Jesus and the crowd going into the city just after they had passed over the brow of Olivet and had begun the descent into the city.

172:3.8 (1882.1) As the procession started out from Bethany, there was great enthusiasm among the festive crowd of disciples, believers, and visiting pilgrims, many hailing from Galilee and Perea. Just before they started, the twelve women of the original women's corps, accompanied by some of their associates, arrived on the scene and joined this unique procession as it moved on joyously toward the city.

172:3.9 (1882.2) Before they started, the Alpheus twins put their cloaks on the donkey and held him while the Master got on. As the procession moved toward the summit of Olivet, the festive crowd threw their garments on the ground and brought branches from the near-by trees in order to make a carpet of honor for the donkey bearing the royal Son, the promised Messiah. As the merry crowd moved on toward Jerusalem, they began to sing, or rather to shout in unison, the Psalm, “Hosanna

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축복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국에 복이 있으라”고 외쳤다.

그들이 진행하여 그 성과 성전 탑들이 잘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예수**께서는 쾌활하고 즐거워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행렬을 멈추게 했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모두에게 엄습했다. **주님**은 방대한 대중이 자신을 환영하려고 성에서 나오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크게 감동되고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오 **예루살렘**아, 그토록 값없이 가질 수 있었던, 너의 평안에 속한 것들을, 네가 적어도 이렇게 한창일 때에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이 영광이 네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졌다. 너는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려고 하며, 구원의 복음에 등을 돌리려고 한다. 너의 대적들이 너를 둘러 진치고 포위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며; 그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너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네게 내리는 재앙의 때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모든 일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다시 **감람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얼마 안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든지, 아니면 즐거워 떠들고 서로 반기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방문객 대중과 합세했다. 이런 인파가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주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극적인 일을 미리 꾸미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다.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대중 가운데는, 많은 **바리새인** 및 다른 대적하는 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민중의 환호에 너무나 당황했으며, 그런 행동이 민중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그를 체포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대부분 그를 믿은 많은 방문객의 태도를 무척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인파가 더 소란스러워졌으므로,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예수**의 걸을 따라 길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선생이여, 점잖게 행동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고 타이르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부한 **평화의 아들**을 이 자녀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멈추게 한다면, 길옆에 있는 이 돌들이라도 그들 대신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리새인은 그때 성전에서 회의 중이던 **산헤드린**에 합세하기 위해 서둘러 행렬 앞으로 가서,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be the kingdom that comes down from heaven.”

172:3.10 (1882.3) Jesus was lighthearted and cheerful as they moved along until he came to the brow of Olivet, where the city and the temple towers came into full view; there the Master stopped the procession, and a great silence came upon all as they beheld him weeping. Looking down upon the vast multitude coming forth from the city to greet him, the Master, with much emotion and with tearful voice, said: “O Jerusalem, if you had only known, even you, at least in this your day, the things which belong to your peace, and which you could so freely have had! But now are these glories about to be hid from your eyes. You are about to reject the Son of Peace and turn your backs upon the gospel of salvation. The days will soon come upon you wherein your enemies will cast a trench around about you and lay siege to you on every side; they shall utterly destroy you, insomuch that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And all this shall befall you because you knew not the time of your divine visitation. You are about to reject the gift of God, and all men will reject you.”

172:3.11 (1882.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hey began the descent of Olivet and presently were joined by the multitude of visitors who had come from Jerusalem waving palm branches, shouting hosannas, and otherwise expressing gleefulness and good fellowship. The Master had not planned that these crowds should come out from Jerusalem to meet them; that was the work of others. He never premeditated anything which was dramatic.

172:3.12 (1882.5) Along with the multitude which poured out to welcome the Master, there came also many of the Pharisees and his other enemies. They were so much perturbed by this sudden and unexpected outburst of popular acclaim that they feared to arrest him lest such action precipitate an open revolt of the populace. They greatly feared the attitude of the large numbers of visitors, who had heard much of Jesus, and who, many of them, believed in him.

172:3.13 (1882.6) As they neared Jerusalem, the crowd became more demonstrative, so much so that some of the Pharisees made their way up alongside Jesus and said: “Teacher, you should rebuke your disciples and exhort them to behave more seemly.” Jesus answered: “It is only fitting that these children should welcome the Son of Peace, whom the chief priests have rejected. It would be useless to stop them lest in their stead these stones by the roadside cry out.”

172:3.14 (1882.7) The Pharisees hastened on ahead of the procession to rejoin the Sanhedrin, which was

동료들에게 보고했다.“보라,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 소용없게 됐으며;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난처하게 됐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에게 몰려 나갔으니;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민중의 이런 피상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열광의 분출에는 아무런 깊은 의미가 정말로 없었다. 이런 환영은, 기쁘고 진지한 것이기는 했지만, 축제에 참석한 이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실제 확신을 나타낸 것이 전혀 아니었다. 바로 이 인파는, 이 주간의 마지막에 산헤드린이 그를 대적하기로 굳게 결의하고, 자신이 환멸을 느꼈을 때--즉 예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에 따라 왕국을 세우려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마찬가지로 곧 기꺼이 예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 성이 온통 크게 소동하여,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중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4. 성전 방문

알파오 쌍둥이가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간 동안,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가까운 동역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성전을 거닐었으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광경을 바라봤다.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크게 무서워했으므로 예수를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것은 결국 대중이 그렇게 환호하도록 예수께서 허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즉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적 조처였음을, 사도들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주님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예루살렘 주민에게, 또한 수만의 유월절 방문객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인파가 음식을 먹으러 갔고, 예수 및 그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만 남았다. 얼마나 유별난 하루였는지!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이 예수와 교제했던 여러 해 동안 이런 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잠시 현금케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현금 넣는 것을 바라봤는데:부자들은 모두 자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넣었다. 끝으로 초라한 행색의 한 가난한 과부가 왔고, 그 여자가 (작은 구리동전) 두 푼을 깔때기 모양의 구멍에 넣는 것을 봤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 과부를 주목해 보라고 하면서 말씀했다:“너희가 방금 본 것을 명심하도록 해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선물로 조금 떼어서 바쳤지만,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

then in session at the temple, and they reported to their associates: “Behold, all that we do is of no avail; we are confounded by this Galilean. The people have gone mad over him; if we do not stop these ignorant ones, all the world will go after him.”

172:3.15 (1883.1) There really was no deep significance to be attached to this superficial and spontaneous outburst of popular enthusiasm. This welcome, although it was joyous and sincere, did not betoken any real or deep-seated conviction in the hearts of this festive multitude. These same crowds were equally as willing quickly to reject Jesus later on this week when the Sanhedrin once took a firm and decided stand against him, and when they became disillusioned — when they realized that Jesus was not going to establish the kingdom in accordance with their long-cherished expectations.

172:3.16 (1883.2) But the whole city was mightily stirred up, insomuch that everyone asked, “Who is this man?” And the multitude answered, “This is the prophet of Galilee, Jesus of Nazareth.”

4. VISITING ABOUT THE TEMPLE

172:4.1 (1883.3) While the Alpheus twins returned the donkey to its owner, Jesus and the ten apostles detached themselves from their immediate associates and strolled about the temple, viewing the preparations for the Passover. No attempt was made to molest Jesus as the Sanhedrin greatly feared the people, and that was, after all, one of the reasons Jesus had for allowing the multitude thus to acclaim him. The apostles little understood that this was the only human procedure which could have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Jesus' immediate arrest upon entering the city. The Master desired to give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high and low, as well as the tens of thousands of Passover visitors, this one more and last chance to hear the gospel and receive, if they would, the Son of Peace.

172:4.2 (1883.4) And now, as the evening drew on and the crowds went in quest of nourishment, Jesus and his immediate followers were left alone. What a strange day it had been! The apostles were thoughtful, but speechless. Never, in their years of association with Jesus, had they seen such a day. For a moment they sat down by the treasury, watching the people drop in their contributions: the rich putting much in the receiving box and all giving something in accordance with the extent of their possessions. At last there came along a poor widow, scantily attired, and they observed as she cast two mites (small coppers) into the trumpet. And then said Jesus, calling the attention of the apostles to the widow: “Heed well what you have just seen. This poor widow cast in more than all

지임에도,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모두 바쳤기 때문이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없이 성전 뜰을 거닐었으며, **예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방문도 제외하지 않고, 전에 했던 것들과 관련된 느낌을 회상하면서, 이 친숙한 장면을 한 번 더 둘러본 후에 말씀했다.“우리 휴식을 위해 **베다니**로 올라가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갔으며, 한편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베스페이지**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다.

5. 사도들의 태도

이 일요일 저녁에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올 때, **예수**께서는 사도들 앞에서 걸어갔다. **시몬**의 집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어떤 열두 인간도, 이 천국 대사 {大使}들의 정신과 혼을 통해서 지금 밀려들어온, 그토록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강인한 이 **갈릴리인**들은 혼돈되고 당황해서; 자신들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지 알 수 없었으며;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려워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주님**의 내일 계획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나, 쌍둥이 형제 외에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지는 않았다.

안드레는 완전히 당황해서, 거의 혼란된 상태였다. 그는 환호성을 분출하는 민중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사도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대중이 호산나를 크게 외친 것의 의미나 중요성에 진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안드레**는 동역자들 중에 흥분해서 그 소동에 가담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열심당 시몬**을 지켜보기에 바빴다. **안드레**는 이날부터 그 후 며칠 동안 내내 심각한 염려로 고심했지만, 사도 동역자들에게는 이 의심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열두 사도 가운데 일부의 태도를 걱정했지만; 바로 동생 **베드로**가 그런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진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피상적 인상을 줬을 뿐이며; 자기가 맡은 책임에 너무 바빠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민중의 열광적 시위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으나; 그날 밤에 **베다니**로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침착하게 됐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

the others, for all these others, from their superfluity, cast in some trifle as a gift, but this poor woman, even though she is in want, gave all that she had, even her living.”

172:4.3 (1883.5) As the evening drew on, they walked about the temple courts in silence, and after Jesus had surveyed these familiar scenes once more, recalling his emotions in connection with previous visits, not excepting the earlier ones, he said, “Let us go up to Bethany for our rest.” Jesus, with Peter and John, went to the home of Simon, while the other apostles lodged among their friends in Bethany and Bethpage.

5. THE APOSTLES' ATTITUDE

172:5.1 (1883.6) This Sunday evening as they returned to Bethany, Jesus walked in front of the apostles. Not a word was spoken until they separated after arriving at Simon's house. No twelve human beings ever experienced such diverse and inexplicable emotions as now surged through the minds and souls of these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ese sturdy Galileans were confused and disconcerted; they did not know what to expect next; they were too surprised to be much afraid. They knew nothing of the Master's plans for the next day, and they asked no questions. They went to their lodgings, though they did not sleep much, save the twins. But they did not keep armed watch over Jesus at Simon's house.

172:5.2 (1884.1) Andrew was thoroughly bewildered, well-nigh confused. He was the one apostle who did not seriously undertake to evaluate the popular outburst of acclaim. He was too preoccupied with the thought of his responsibility as chief of the apostolic corps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e loud hosannas of the multitude. Andrew was busy watching some of his associates who he feared might be led away by their emotions during the excitement, particularly Peter, James, John, and Simon Zelotes. Throughout this day and those which immediately followed, Andrew was troubled with serious doubts, but he never expressed any of these misgivings to his apostolic associates. He was concerned about the attitude of some of the twelve who he knew were armed with swords; but he did not know that his own brother, Peter, was carrying such a weapon. And so the procession into Jerusalem made a comparatively superficial impression upon Andrew; he was too busy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his office to be otherwise affected.

172:5.3 (1884.2) Simon Peter was at first almost swept off his feet by this popular manifestation of enthusiasm; but he was considerably sobered by the time they returned to Bethany that night. Peter simply could not figure out what the Master was

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선언과 함께 민중의 이 지저분한 물결을 타지 않은 것에 아주 심히 실망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대중에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도들 가운데 하나에게 인과 앞에서 연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으며, 그토록 많은, 잘 받아들이고 준비가 돼있는 열정적인 청중을 그냥 가도록 보고만 있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성전에 있는 바로 그 군중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주님은, 이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전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었다. 성(城) 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행렬에 대한 반응이 시몬 베드로에게 큰 상처가 됐으며, 밤이 될 때까지도 마음이 냉랭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겼다.

야고보 세베대에게, 이 일요일은 당황하고 깊은 혼란에 빠진 하루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토록 거세게 환호하도록 내버려두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주님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었다.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 감람산을 내려갈 때, 특히 주님을 환영하러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순례자를 만났을 때, 야고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고 크게 만족하는 모순된 감정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서 나귀에서 내려와 성전 뜰을 한가히 걸어 다니고자 할 때 낙심했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야고보는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기까지 그의 정신은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의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다.

요한 세베대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으며; 소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식의 영적인 중요성을 적어도 일부분은 파악했다. 대중이 성전으로 움직일 때, 요한은 나귀 등에 걸터앉은 주님을 붙잡고 가면서, 언젠가 예수께서 성서에서 인용했던 스가랴를 상기했으며, 그 내용은 평화의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마음 속에서 이 성서의 책장을 넘기면서, 이 일요일 오후 행렬의 상징적 의미를 납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그 사건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행렬이 표면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것 때문에 너무 좌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파악했다. 요한은 상징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유형의 정신을 소유했다.

빌립은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돌연성과 자발성 때문에 완전히 침착성을 잃었다. 감람산을 내

about. He was terribly disappointed that Jesus did not follow up this wave of popular favor with some kind of a pronouncement. Peter could not understand why Jesus did not speak to the multitude when they arrived at the temple, or at least permit one of the apostles to address the crowd. Peter was a great preacher, and he disliked to see such a large, receptive, and enthusiastic audience go to waste. He would so much have liked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at throng right there in the temple; but the Master had specifically charged them that they were to do no teaching or preaching while in Jerusalem this Passover week. The reaction from the spectacular procession into the city was disastrous to Simon Peter; by night he was sobered and inexpressibly saddened.

172:5.4 (1884.3) To James Zebedee, this Sunday was a day of perplexity and profound confusion; he could not grasp the purport of what was going on; he could not comprehend the Master's purpose in permitting this wild acclaim and then in refusing to say a word to the people when they arrived at the temple. As the procession moved down Olivet toward Jerusalem, more especially when they were met by the thousands of pilgrims who poured forth to welcome the Master, James was cruelly torn by his conflicting emotions of elation and gratification at what he saw and by his profound feeling of fear as to what would happen when they reached the temple. And then was he downcast and overcome by disappointment when Jesus climbed off the donkey and proceeded to walk leisurely about the temple courts. James could not understand the reason for throwing away such a magnificent opportunity to proclaim the kingdom. By night, his mind was held firmly in the grip of a distressing and dreadful uncertainty.

172:5.5 (1884.4) John Zebedee came somewhere near understanding why Jesus did this; at least he grasped in part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is so-called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As the multitude moved on toward the temple, and as John beheld his Master sitting there astride the colt, he recalled hearing Jesus onetime quote the passage of Scripture, the utterance of Zechariah, which described the coming of the Messiah as a man of peace and riding into Jerusalem on an ass. As John turned this Scripture over in his mind, he began to comprehen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is Sunday-afternoon pageant. At least, he grasped enough of the meaning of this Scripture to enable him somewhat to enjoy the episode and to prevent his becoming overmuch depressed by the apparent purposeless ending of the triumphal procession. John had a type of mind which naturally tended to think and feel in symbols.

172:5.6 (1885.1) Philip was entirely unsettled by the suddenness and spontaneity of the outburst. He could not collect his thoughts sufficiently while on

려오는 동안, 그는 그 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떤 차분한 개념이든지 가질 만큼 충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주님**이 예수 받은 것 때문에 그 광경을 다소 즐기기도 했다. 성전에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께서 아마 대중을 먹이라고 자기에게 명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으므로, **예수**께서 인파로부터 유유히 떠나자, 사도들 대부분은 그토록 심하게 낙심했지만, **빌립**은 매우 안심했다. 열두 사도의 사무장이었던 그에게, 대중은 때때로 큰 시험거리였다. 인파에게 필요한 물질에 관한 개인적 염려가 사라진 후에, **빌립**은 **베드로**와 이구동성으로, 대중에게 가르치기 위한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음에 실망했다고 표현했다. **빌립**은 그날 밤에 이런 체험을 되새기면서, 천국에 대한 모든 관념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솔직히 놀랐지만, 자신의 의심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무척 사랑했다. 그는 **주님**에 대한 개인 신앙이 매우 깊었다.

나다니엘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면 이외에는, **주님**이 **유월절** 순례자들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것에 대한 이유를 거의 근접되게 이해했다. 그는 추측하기를,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시위하면서 입성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성에 들어가려는 순간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일단 성곽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자극을 줌서, 그들이 그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자제했을 때, 환호하는 인파를 **주님**이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주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성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참된 이유를 이해했으므로, **예수**의 그 후 행동에 대해, 다른 사도들이 그랬던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안정돼 있었으며, 동요나 낙심하는 정도가 덜했다. **나다니엘**은 사람에 대한 **예수**의 이해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그의 현명함과 총명함을 매우 신뢰했다.

마태는 이 화려한 행렬의 진행으로 인해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 역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가져오는 왕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기뻐할 것을 그 선지자가 암시했던 **스가랴**서를 기억할 때까지, 자기 눈에 비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행진이 성을 향해 움직이고 마침내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황홀경에 빠졌으며; 소리치는 대중 앞에 있는 **주님**이 성전에 도착하면,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마태**가 크게 자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대들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갈 때, 열두 사도 중에 **마태**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the way down Olivet to arrive at any settled notion as to what all the demonstration was about. In a way, he enjoyed the performance because his Master was being honored. By the time they reached the temple, he was perturbed by the thought that Jesus might possibly ask him to feed the multitude, so that the conduct of Jesus in turning leisurely away from the crowds, which so sorely disappointed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was a great relief to Philip. Multitudes had sometimes been a great trial to the steward of the twelve. After he was relieved of these personal fears regard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crowds, Philip joined with Peter in the expression of disappointment that nothing was done to teach the multitude. That night Philip got to thinking over these experiences and was tempted to doubt the whole idea of the kingdom; he honestly wondered what all these things could mean, but he expressed his doubts to no one; he loved Jesus too much. He had great personal faith in the Master.

172:5.7 (1885.2) Nathaniel, aside from the symbolic and prophetic aspects, came the nearest to understanding the Master's reason for enlisting the popular support of the Passover pilgrims. He reasoned it out, before they reached the temple, that without such a demonstrative entry into Jerusalem Jesus would have been arrested by the Sanhedrin officials and cast into prison the moment he presumed to enter the city. He was not, therefore, in the least surprised that the Master made no further use of the cheering crowds when he had once got inside the walls of the city and had thus so forcibly impressed the Jewish leaders that they would refrain from placing him under immediate arrest. Understanding the real reason for the Master's entering the city in this manner, Nathaniel naturally followed along with more poise and was less perturbed and disappointed by Jesus' subsequent conduct than were the other apostles. Nathaniel had great confidence in Jesus' understanding of men as well as in his sagacity and cleverness in handling difficult situations.

172:5.8 (1885.3) Matthew was at first nonplused by this pageant performance. He did not grasp the meaning of what his eyes were seeing until he also recalled the Scripture in Zechariah where the prophet had alluded to the rejoicing of Jerusalem because her king had come bringing salvation and riding upon the colt of an ass. As the procession moved in the direction of the city and then drew on toward the temple, Matthew became ecstatic; he was certain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ould happen when the Master arrived at the temple at the head of this shouting multitude. When one of the Pharisees mocked Jesus, saying, "Look, everybody, see who comes here, the king of the Jews riding on an ass!" Matthew kept his hands off of him only by exercising great restraint. None

시몬 못지않게,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곤두섰으며, 밤이 되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무척 원기를 회복했으며; 결국 그는 지고도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도마는 열두 사도 전체 중에서 가장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그 광경을 흥미 있게 지켜보고, 그런 독특한 시위운동에 **주님**이 어떤 동기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전체 진행에 대해, 명백히 바보스러운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이 일요일 오후에 한 이상한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도마**는,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민중이 이렇게 시위한 것은, **산헤드린**을 매우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님**을 즉시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했다. **도마**는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보여준 **예수**의 영리함이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고, 그는 이런 반응으로 인해 매우 활력을 찾았다.

열심당 시몬에게 이 일요일은 굉장한 날로 시작됐었다. 그는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환상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옳았지만, **시몬**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예수**와 함께 **유대인**의 새로운 국가적 통치를 설립할 꿈을 꿔다. **시몬**은, 천국이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 행동하기를 기대했고, 자신은 그 새 왕국의 집합된 군대를 총괄할 생각이었다. **감람산** 길을 내려가는 동안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산헤드린**과 그 동조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상상하기까지 했다. 정말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한다고 믿었다. 전체 대중 중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다섯 시 무렵에는 조용하고, 기가 꺾이고, 환멸을 느끼는 사도였다. 그는 이날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에게 임한 우울증에서, 적어도 **주님**이 부활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날 때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알페오 쌍둥이 형제에게 이날은 아주 완벽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과정을 즐겼으며, 성전에서 조용히 방문하던 동안에는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민중의 격동이 최고로 식어버린 분위기 대부분과는 상관없었다. 아마 그들은,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기가 꺾인 사도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쌍둥이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웠던 날로 남았다. 이날은 사도로서 지낸 그들의 전 생애 중에 만족스런 정점(頂点)이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오후의 의기양양했던 추억은, 바로 십자가형이 있던 시간까지, 파란 많은 이 주간의 모든 비극을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게 했다. 쌍둥이의 생각에, 그것은 왕의 가장 적당한 입성식이었으며; 그들은 전체 과정의 순간들을 즐겼다. 그들은 자신이 본

of the twelve was more depressed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at evening. Next to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he experienced the highest nervous tension and was in a state of exhaustion by night. But by morning Matthew was much cheered; he was, after all, a cheerful loser.

172:5.9 (1886.1) Thomas was the most bewildered and puzzled man of all the twelve. Most of the time he just followed along, gazing at the spectacle and honestly wondering what could be the Master's motive for participating in such a peculiar demonstration. Down deep in his heart he regarded the whole performance as a little childish, if not downright foolish. He had never seen Jesus do anything like this and was at a loss to account for his strange conduct on this Sunday afternoon. By the time they reached the temple, Thomas had deduced that the purpose of this popular demonstration was so to frighten the Sanhedrin that they would not dare immediately to arrest the Master.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omas thought much but said nothing. By bedtime the Master's cleverness in staging the tumultuous entry into Jerusalem had begun to make a somewhat humorous appeal, and he was much cheered up by this reaction.

172:5.10 (1886.2) This Sunday started off as a great day for Simon Zelotes. He saw visions of wonderful doings in Jerusalem the next few days, and in that he was right, but Simon dreame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al rule of the Jews, with Jesus on the throne of David. Simon saw the nationalists springing into action as soon as the kingdom was announced, and himself in supreme command of the assembling military forces of the new kingdom. On the way down Olivet he even envisaged the Sanhedrin and all of their sympathizers dead before sunset of that day. He really believed something great was going to happen. He was the noisiest man in the whole multitude. By five o'clock that afternoon he was a silent, crushed, and disillusioned apostle. He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depression which settled down on him as a result of this day's shock; at least not until long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172:5.11 (1886.3) To the Alpheus twins this was a perfect day. They really enjoyed it all the way through, and not being present during the time of quiet visitation about the temple, they escaped much of the anticlimax of the popular upheaval. They could not possibly understand the downcast behavior of the apostles when they came back to Bethany that evening. In the memory of the twins this was always their day of being nearest heaven on earth. This day was the satisfying climax of their whole career as apostles. And the memory of the elation of this Sunday afternoon carried them on through all of the tragedy of this eventful week, right up to the hour of the crucifixion. It was the most befitting entry of the king the twins could

모든 것을 온전히 지지했고, 그 추억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다.

전체 사도 중에서 **가롯 유다**가, **예루살렘**으로의 이 입성 행렬로 인해 가장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 그 전날 **시몬**의 집 연회에서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일과 관련하여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으므로, 그의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유다**는 모든 장면에 혐오감을 가졌다. 그에게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치하게 보였다. 복수심이 가득한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일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는 **예수**가 왕이라기보다 광대처럼 보였다. 그는 떨어진 일전부에 대해 진심으로 분개했다. 그는 당나귀나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을 깔보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관점을 가졌다. 성으로 들어가는 개선 행진이 있을 무렵에, **유다**는 그런 왕국 관념을 모두 버리기로 거의 작정했으며; 하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웃기는 시도를 모두 떨쳐버리기로 거의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나사르**의 부활과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더 열두 사도와 함께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 외에도, 돈주머니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사도들의 돈을 지닌 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침묵했으므로, 그의 행동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유다는 **사두개인** 친구들의 비웃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예수**께서 성문에 막 도착했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만큼, 다른 어떤 한 요소가 그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는데: (**유다** 가족의 친구인) 한 유명한 **사두개인**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매우 반가운 채 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왜 표정이 그렇게 침통한가; 기운내고, 나귀 등에 앉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환호하는 우리와 합세하지 않겠나.” **유다**는 어떤 박해에도 굴복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조롱에는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복수의 감정이, 조롱에 대한 이런 심각한 공포심, 즉 **주님**과 동료 사도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소름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느낌과 뒤섞이게 됐다. 임명받은 이 천국 대사는, 마음 속에서 이미 탈영자가 됐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기 위한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conceive; they enjoyed every moment of the whole pageant. They fully approved of all they saw and long cherished the memory.

172:5.12 (1886.4) Of all the apostles, Judas Iscariot was the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is processional entry into Jerusalem. His mind was in a disagreeable ferment because of the Master's rebuke the preceding day in connection with Mary's anointing at the feast in Simon's house. Judas was disgusted with the whole spectacle. To him it seemed childish, if not indeed ridiculous. As this vengeful apostle looked upon the proceedings of this Sunday afternoon, Jesus seemed to him more to resemble a clown than a king. He heartily resented the whole performance. He shared the views of the Greeks and Romans, who looked down upon anyone who would consent to ride upon an ass or the colt of an ass. By the time the triumphal procession had entered the city, Judas had about made up his mind to abandon the whole idea of such a kingdom; he was almost resolved to forsake all such farcical attempt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n he thought of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nd many other things, and decided to stay on with the twelve, at least for another day. Besides, he carried the bag, and he would not desert with the apostolic funds in his possession.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at night his conduct did not seem strange since all of the apostles were equally downcast and silent.

172:5.13 (1887.1) Judas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ridicule of his Sadducean friends. No other single factor exerted such a powerful influence on him, in his final determination to forsake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as a certain episode which occurred just as Jesus reached the gate of the city: A prominent Sadducee (a friend of Judas's family) rushed up to him in a spirit of gleeful ridicule and, slapping him on the back, said: "Why so troubled of countenance, my good friend; cheer up and join us all while we acclaim thi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as he rides through the gates of Jerusalem seated on an ass." Judas had never shrunk from persecution, but he could not stand this sort of ridicule. With the long-nourished emotion of revenge there was now blended this fatal fear of ridicule, that terrible and fearful feeling of being ashamed of his Master and his fellow apostles. At heart, this ordained ambassador of the kingdom was already a deserter; it only remained for him to find some plausible excuse for an open break with the Master.

제173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 172

유랜시아 책

174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73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섹션

소개

1. 성전 청소
2. 주님의 권세에 도전함
3. 두 아들 비유
4.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5. 결혼 잔치 비유

소개

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베다니아에 있는 시몬의 집에 모였고, 잠시 논의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 열두 사도는 성전을 향해 길을 가는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으며; 전날의 체험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졌고, 두려워했으며, 이 유월절 주간 내내 어떤 공개적 가르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지시와 함께, 주님의 갑작스런 전술 변경에서 나오는 어떤 초연한 감정에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일행이 감람산 아래로 여행할 때, 예수께서 앞에 갔고,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침묵하는 가운데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갔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똑같이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주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유다가 열중한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할까? 예수와 동역자들과 함께 갈까?' 아니면 떠날까? 그리고 내가 그만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별할까?'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한 것은 꽤 찬한 이날 아침 아홉 시쯤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토록 자주 가르쳤던 넓은 뜰로 바로 갔으며,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과 인사한 후에, 여러 연단(壇)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서, 모여드는 인파

PAPER 173

MONDAY IN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Cleansing the Temple
2. Challenging the Master's Authority
3. Parable of the Two Sons
4. Parable of the Absent Landlord
5. Parable of the Marriage Feast

INTRODUCTION

173:0.1 (1888.1) EARLY on this Monday morning, by prearrangement, Jesus and the apostles assembled at the home of Simon in Bethany, and after a brief conference they set out for Jerusalem. The twelve were strangely silent as they journeyed on toward the temple; they had not recover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preceding day. They were expectant, fearful, and profoundly affected by a certain feeling of detachment growing out of the Master's sudden change of tactics, coupled with his instruction that they were to engage in no public teaching throughout this Passover week.

173:0.2 (1888.2) As this group journeyed down Mount Olivet, Jesus led the way, the apostles following closely behind in meditative silence. There was just one thought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save Judas Iscariot, and that was: What will the Master do today? The one absorbing thought of Judas was: What shall I do? Shall I go on with Jesus and my associates, or shall I withdraw? And if I am going to quit, how shall I break off?

173:0.3 (1888.3) It was about nine o'clock on this beautiful morning when these men arrived at the temple. They went at once to the large court where Jesus so often taught, and after greeting the believers who were awaiting him, Jesus

에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다.

mounted one of the teaching platforms and began to address the gathering crowd. The apostles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and awaited developments.

1. 성전 청소

성전 경매에 속하는 예배 및 예식과 관련해서 막대한 상업 거래가 발전해 왔었다. 희생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여러 종류의 동물을 제공하는 장사가 있었다. 경매자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허용은 됐지만, 실상은 이 동물이 **레위기**의 율법에 비취 볼 때, 그리고 성전 검사관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해결돼야 했다. 경매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동물이 성전 검사관에게 퇴짜 맞는 창피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희생 동물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습이 되기 시작했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감람원** 가까이에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이 동물을 성전에 있는 가족(家畜) 우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이 성행하게 됐다. 성전 뜰에서 모든 종류의 제물용 동물을 파는 이런 관습이 점점 번창했다. 그리하여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거래가 그렇게 생겨났다. 이런 소득의 일부는 성전 금고에 비축 됐지만, 더 많은 부분은, 세력을 잡은 대체사장 가족에게 슬그머니 넘겨졌다.

성전에서 이렇게 동물 판매가 성행했던 이유는, 값이 약간 더 비쌌지만 경매자가 그런 동물을 사면, 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예정된 희생 제물이 실제로 있거나 또는 기술적인 흠을 빌미로 해서 퇴짜 맞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체계가 일반인에게 적용됐으며, 특히 민족의 대 축제 기간에 그랬다. 한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만 몇 페니에 팔리게 돼있는 비둘기 한 쌍에 대해, 탐욕스런 사제들이 일 주일 분의 노동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하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안나스의 아들들**”은 이미 성전 구내(區內)에 매장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 상점들은 성전 자체가 파괴되기 3년 전에 폭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점(閉店)될 때까지 계속 존제한, 바로 그런 상품 매매 장소였다.

그러나 희생 제물용 동물과 잡다한 물품에 대한 거래만이 성전 뜰을 더럽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때 당시에, 성전 구내 바로 안쪽에서 운영됐던 광범한 은행업 및 상업용 환전(換錢) 체계가 조성돼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아스모니아** 왕조 시절에, **유대인**은 자기네 특유의 은전을 만들었으며, 성전 세로 반 세겔을 내도록 요구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다른 모든 성전 입장료도 이 **유대인**용 동전으

1. CLEANSING THE TEMPLE

173:1.1 (1888.4) A huge commercial traffic had grown up in association with the services and ceremonies of the temple worship. There was the business of providing suitable animals for the various sacrifices. Though it was permissible for a worshiper to provide his own sacrifice, the fact remained that this animal must be free from all “blemish” in the meaning of the Levitical law and as interpreted by official inspectors of the temple. Many a worshiper had experienced the humiliation of having his supposedly perfect animal rejected by the temple examiners. It therefore became the more general practice to purchase sacrificial animals at the temple, and although there were several stations on near-by Olivet where they could be bought, it had become the vogue to buy these animals directly from the temple pens. Gradually there had grown up this custom of selling all kinds of sacrificial animals in the temple courts. An extensive business, in which enormous profits were made, had thus been brought into existence. Part of these gains was reserved for the temple treasury, but the larger part went indirectly into the hands of the ruling high-priestly families.

173:1.2 (1888.5) This sale of animals in the temple prospered because, when the worshiper purchased such an animal, although the price might be somewhat high, no more fees had to be paid, and he could be sure the intended sacrifice would not be rejected on the ground of possessing real or technical blemishes. At one time or another systems of exorbitant overcharge were practiced upon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during the great national feasts. At one time the greedy priests went so far as to demand the equivalent of the value of a week's labor for a pair of doves which should have been sold to the poor for a few pennies. The “sons of Annas” had already begun to establish their bazaars in the temple precincts, those very merchandise marts which persisted to the time of their final overthrow by a mob three years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tself.

173:1.3 (1889.1) But traffic in sacrificial animals and sundry merchandise was not the only way in which the courts of the temple were profaned. At this time there was fostered an extensive system of banking and commercial exchange which was carried on right within the temple precincts. And this all came about in the following manner: During the Asmonean dynasty the Jews coined their own silver money, and it had become the practice to

로 바치도록 했다.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 전역은 물론 **로마제국** 각 지방에서 통용되는 많은 종류의 돈을, **유대인**용 동전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가들이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여자, 중, 및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성전 인두세{人頭稅}는 반 세겔이었고, 10센트 짜리 동전과 같은 크기에, 두께는 두 배쯤 되는 동전이 었다. **예수** 당시까지 사제들은 성전세 납부 의무에서도 면제돼 왔었다. 따라서, **유월절**에 앞서 그 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 받은 환전가들이 **팔레스틴** 주요 도시마다 환전소를 설치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합당한 돈으로 바꿔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환전가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성전 뜰에 돈을 바꿔주는 상을 설치했다. 그들은 약 10센트에 해당되는 돈을 바꿔줄 때마다 3내지 4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많은 금액을 바꿔줄 때에는 두 배까지 징수하는 것도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이 은행가들도, 희생 제물용 동물을 사거나 서원{誓願}을 위한 대금 또는 헌금하기 위해 돈을 바꿔 주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

성전에서 이런 환전가들은,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20여 종류 이상의 돈을 바꿔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정규 은행업무뿐 아니라, 은행 업무에 부속된 여러 가지의 모든 다른 거래에도 또한 관여했다. 성전 재무관과 성전 관리들 양쪽은 이런 상업 활동에서 엄청난 이익금을 거둬들였다. 민중이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렇게 불의한 세금을 계속 바치는 동안에, 성전 재무관은 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월요일 아침에, 환전가, 상인, 및 가축 판매자들로 구성된 시끄러운 집단 한가운데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에 **예수**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외국 지역에서 방문한 **유대인** 또한, 자기 민족의 경배처소를 모독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에 진심으로 분개했다. 바로 이때에 **산헤드린**은, 매매와 물물교환으로 인한 이런 모든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인 채, 회의장 안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예수께서 막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그의 주의를 끄는 일이 두 가지 발생했다. 가까이 있던 환전가의 돈 바꿔 주는 상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어느 **유대인**이 바가지질을 썼다고 우겨댔으로써 맹렬하고 격한 다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백 마

require the temple dues of one-half shekel and all other temple fees to be paid with this Jewish coin. This regulation necessitated that money-changers be licensed to exchange the many sorts of currency in circulation throughout Palestine and other provinces of the Roman Empire for this orthodox shekel of Jewish coining. The temple head tax, payable by all except women, slaves, and minors, was one-half shekel, a coin about the size of a ten-cent piece but twice as thick. By the times of Jesus the priests had also been exempted from the payment of temple dues. Accordingly, from the 15th to the 25th of the month preceding the Passover, accredited money-changers erected their booths in the principal cities of Palestin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Jewish people with proper money to meet the temple dues after they had reached Jerusalem. After this ten-day period these money-changers moved on to Jerusalem and proceeded to set up their exchange tables in the courts of the temple. They were permitted to charge the equivalent of from three to four cents commission for the exchange of a coin valued at about ten cents, and in case a coin of larger value was offered for exchange, they were allowed to collect double. Likewise did these temple bankers profit from the exchange of all money intended for the purchase of sacrificial animals and for the payment of vows and the making of offerings.

173:1.4 (1889.2) These temple money-changers not only conducted a regular banking business for profit in the exchange of more than twenty sorts of money which the visiting pilgrims would periodically bring to Jerusalem, but they also engaged in all other kinds of transactions pertaining to the banking business. Both the temple treasury and the temple rulers profited tremendously from these commercial activities. It was not uncommon for the temple treasury to hold upwards of ten million dollars while the common people languished in poverty and continued to pay these unjust levies.

173:1.5 (1889.3) In the midst of this noisy aggregation of money-changers, merchandisers, and cattle sellers, Jesus, on this Monday morning, attempted to teach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He was not alone in resenting this profanation of the temple;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the Jewish visitors from foreign provinces, also heartily resented this profiteering desecration of their national house of worship. At this time the Sanhedrin itself held its regular meetings in a chamber surrounded by all this babble and confusion of trade and barter.

173:1.6 (1890.1) As Jesus was about to begin his address, two things happened to arrest his attention. At the money table of a near-by exchanger a violent and heated argument had arisen over the alleged overcharging of a Jew from

리 정도나 되는 황소 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축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했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러나 주의 깊게 이런 상업적이고 혼란스런 광경을 숙고했으며, 한때 **아이론**에서 대화했던 적이 있는 한 순박한 기질의 **갈릴리** 사람이, 거만하고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밀침 당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으며,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예수**의 혼 속에 분개한 감정이 예상 밖으로 잠시 일어나게 됐다.

예수께서 연단에서 내려와, 뜰을 가로질러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끈으로 된 채찍을 빼앗아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신속히 몰아냈을 때, 곧 이어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했던, 가까이 서 있던 사도들은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그는 성전 뜰에 모여 놀라며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 앞을 지나, 가장 먼 가축우리로 당당하게 걸어갔고, 모든 가축우리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전부 몰아냈다. 이때, 모여 있던 순례자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기 시작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모든 거래행위가 성전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때, 가까이 있던 **로마인** 호위병들이 나타났으며, 모두 조용해지고, 인파는 질서를 되찾았으며; **예수**께서는 단상으로 돌아와 대중에게 말씀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겠으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서**에 써여있는 그것을, 너희가 오늘 목격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계속하기 전에, 거대한 집회무리가 호산나 찬미를 부르면서 쏟아져 나왔으며, 이윽고, 신성을 모독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신성시되는 성전에서 쫓아낸 것에 고마워하는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 다수의 소년이 인파 앞으로 나왔다. 이때, 어떤 사제들이 거기에 도착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레위인**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젖먹이 아이들의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때부터 하루 종일 가르치는 동안, 병사들이 사람들 옆에 서서 모든 통로를 지켰으며, 누구든지 빈 그릇이라도 무엇이든지 들고 성전 뜰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사건들을 전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기로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제 불경스러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일에 공공연히 동조하는 대중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은 하루 종일 성전 뜰에 고요와 평화가 넘

Alexandria, while at the same moment the air was rent by the bellowing of a drove of some one hundred bullocks which was being driven from one section of the animal pens to another. As Jesus paused, silently but thoughtfully contemplating this scene of commerce and confusion, close by he beheld a simple-minded Galilean, a man he had once talked with in Iron, being ridiculed and jostled about by supercilious and would-be superior Judeans; and all of this combined to produce one of those strange and periodic uprisings of indignant emotion in the soul of Jesus.

173:1.7 (1890.2) To the amazement of his apostles, standing near at hand, who refrained from participation in what so soon followed, Jesus stepped down from the teaching platform and, going over to the lad who was driving the cattle through the court, took from him his whip of cords and swiftly drove the animals from the temple. But that was not all; he strode majestically before the wondering gaze of the thousands assembled in the temple court to the farthest cattle pen and proceeded to open the gates of every stall and to drive out the imprisoned animals. By this time the assembled pilgrims were electrified, and with uproarious shouting they moved toward the bazaars and began to overturn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In less than five minutes all commerce had been swept from the temple. By the time the near-by Roman guards had appeared on the scene, all was quiet, and the crowds had become orderly; Jesus, returning to the speaker's stand, spoke to the multitude: “You have this day witnessed that which is written in the Scriptures: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173:1.8 (1890.3) But before he could utter other words, the great assembly broke out in hosannas of praise, and presently a throng of youths stepped out from the crowd to sing grateful hymns of appreciation that the profane and profiteering merchandisers had been ejected from the sacred temple. By this time certain of the priests had arrived on the scene, and one of them said to Jesus, “Do you not hear what the children of the Levites say?” And the Master replied,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s of babes and sucklings has praise been perfected’?” And all the rest of that day while Jesus taught, guards set by the people stood watch at every archway, and they would not permit anyone to carry even an empty vessel across the temple courts.

173:1.9 (1890.4)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heard about these happenings, they were dumfounded. All the more they feared the Master, and all the more they determined to destroy him. But they were nonplused. They did not know how to accomplish his death, for they greatly feared the multitudes, who were now so outspoken in their approval of his overthrow of the profane profiteers.

쳤으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정말로 열중했다.

예수의 이런 놀라운 행동은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주님**의 이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움직임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내내 연단(演壇) 주변에 몰려 있었으며; 이런 성전 청소를 돕기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루 전에 성문을 통과하는 떠들썩한 행진이 끝나면서, **예수**께서 승리한 모습으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런 광경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할 준비가 돼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자, 동참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

이런 성전 청소는, 상업화된 종교 풍습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물론,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경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과 모든 불공정성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밝히 드러낸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 재정, 또는 성직의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불의한 소수 무리의 불공정하고 노예화하려는 악습에 대항해서, 어떤 주어진 인간 집단이든지 그 대다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의 이상주의 때문에, 자기_방어를 위하거나 훌륭한 인생 설계를 촉진하려고 무력에 호소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심술궂고 사악하며 뱃속이 검은 사람들이 자체를 조직하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And all this day, a day of quiet and peace in the temple courts, the people heard Jesus' teaching and literally hung on his words.

173:1.10 (1890.5) This surprising act of Jesus wa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his apostles. They were so taken aback by this sudden and unexpected move of their Master that they remained throughout the whole episode huddled together near the speaker's stand; they never lifted a hand to further this cleansing of the temple. If this spectacular event had occurred the day before, at the time of Jesus' triumphal arrival at the temple at the termination of his tumultuous procession through the gates of the city, all the while loudly acclaimed by the multitude, they would have been ready for it, but coming as it did, they were wholly unprepared to participate.

173:1.11 (1891.1) This cleansing of the temple discloses the Master's attitude toward commercializing the practices of religion as well as his detestation of all forms of unfairness and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the poor and the unlearned. This episode also demonstrates that Jesus did not look with approval upon the refusal to employ force to protect the majority of any given human group against the unfair and enslaving practices of unjust minorities who may be able to entrench themselves behind political, financial, or ecclesiastical power. Shrewd, wicked, and designing men are not to be permitted to organize themselves for the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those who, because of their idealism, are not disposed to resort to force for self-protection or for the furtherance of their laudable life projects.

2. 주님의 권세에 도전함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일요일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예수**를 체포하는 일을 자제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주님**의 체포를 효과적으로 연기시켰다. **유대인** 관리들은 매일같이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지만,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 결행 시간을 연기하도록 작용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중이 분개함으로 광포해져서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공공연하게 체포하기를 꺼렸으며; 민중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한 우려했다.

산헤드린의 정오 회의에서는, **주님**의 친구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신속하게 죽이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다섯 개의 무리를 뽑아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서, 그의 가르침으로 함정에 빠

2. CHALLENGING THE MASTER'S AUTHORITY

173:2.1 (1891.2) On Sunday the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so overawed the Jewish leaders that they refrained from placing Jesus under arrest. Today, this spectacular cleansing of the temple likewise effectively postponed the Master's apprehension. Day by day the rulers of the Jews were becoming more and more determined to destroy him, but they were distraught by two fears, which conspired to delay the hour of strik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unwilling to arrest Jesus in public for fear the multitude might turn upon them in a fury of resentment; they also dreaded the possibility of the Roman guards being called upon to quell a popular uprising.

173:2.2 (1891.3) At the noon session of the Sanhedrin it was unanimously agreed that Jesus must be speedily destroyed, inasmuch as no friend of the Master attended this meeting. But they could not agree as to when and how he should be taken into custody. Finally they agreed upon appointing five

지게 하든지, 또는 그의 교육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안에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두 시쯤에, “아들신분의 자유함”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을 막 시작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 한 무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와서, 관례에 따른 방법으로 말씀을 가로막고 질문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특히 성전에서 모든 매매를 중지시킨 **예수**의 최근 행위에 관련되다시피, 그의 특질을 이뤄 왔던 색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성전 관리들과 **유대 산헤드린**의 관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당한 일이었다. 이 상인(商人)과 환전가들은 모두 최고 관리들로부터 직접 허락받아 운영했고,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곧바로 성전 금고로 들어가게 돼있었다. **권세**라는 말이 모든 **유대민족**의 슬로건이었음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은, 권세 없이, 즉 율법학자를 배출하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후에 **산헤드린**의 공식 임명을 받지 않은 채, 권세 없이 감히 가르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당해야 했다. 이런 권세 없이 감히 공개적으로 가르치려하는 것은,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반역으로 간주됐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산헤드린**만이 장로나 교사를 임명할 수 있었고, 그런 예식은, 이미 전에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이 적어도 셋 이상 있어야 거행될 수 있었다. 그런 임직식에서 교사에게 “랍비”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또한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즉 “판결해 달라고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속박하거나 풀어주는” 자격 역시 그에게 주어졌다.

성전 관리들이 이날 오후에 예수께 온 것은,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동에 도전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자들임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겠는데,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그의 권세를 하늘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쪽으로 물러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대중 앞에서 **예수**를 무안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성전 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 자신이 혼란에 빠졌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더

groups to go out among the people and seek to entangle him in his teaching or otherwise to discredit him in the sight of those who listened to his instruction. Accordingly, about two o'clock, when Jesus had just begun his discourse on “The Liberty of Sonship,” a group of these elders of Israel made their way up near Jesus and, interrupting him in the customary manner, asked this question: “By what authority do you do these things? Who gave you this authority?”

173:2.3 (1891.4) It was altogether proper that the temple rulers and the officers of the Jewish Sanhedrin should ask this question of anyone who presumed to teach and perform in the extraordinary manner which had been characteristic of Jesus, especially as concerned his recent conduct in clearing the temple of all commerce. These traders and money-changers all operated by direct license from the highest rulers, and a percentage of their gains was supposed to go directly into the temple treasury. Do not forget that *authority* was the watchword of all Jewry. The prophets were always stirring up trouble because they so boldly presumed to teach without authority, without having been duly instructed in the rabbinic academies and subsequently regularly ordained by the Sanhedrin. Lack of this authority in pretentious public teaching was looked upon as indicating either ignorant presumption or open rebellion. At this time only the Sanhedrin could ordain an elder or teacher, and such a ceremony had to take place in the presence of at least three persons who had previously been so ordained. Such an ordination conferred the title of “rabbi” upon the teacher and also qualified him to act as a judge, “binding and loosing such matters as might be brought to him for adjudication.”

173:2.4 (1892.1) The rulers of the temple came before Jesus at this afternoon hour challenging not only his teaching but his acts. Jesus well knew that these very men had long publicly taught that his authority for teaching was Satanic, and that all his mighty works had been wrought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Therefore did the Master begin his answer to their question by asking them a counter-question. Said Jesus: “I would also like to ask you one question which, if you will answer me, I likewise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works. The baptism of John, whence was it? Did John get his authority from heaven or from men?”

173:2.5 (1892.2) And when his questioners heard this, they withdrew to one side to take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what answer they might give. They had thought to embarrass Jesus before the multitude, but now they found themselves much confused before all who were assembled at that time in the temple court. And their discomfiture was all the more apparent when they returned to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대답한 것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했기 때문이다: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아마 그가 자기 권세를 **요한**에게서 받았다고 할 것이며;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와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교사 및 지도자들은 **요한**의 사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또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위해 **요한**에게 간청하려 한 적이 없었으며, **요한**도 **산헤드린**의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세는,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주권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반대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다룰 때,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몇몇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대적하는 자라도 공평치 못하게 억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겉으로는 적당히 둘러대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숨겨진 권세를 모든 청중에게 보여줬다. 그들은 그가 마귀들의 왕자의 권세로 일한다고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산헤드린**에게서 허가받은 적이 없으므로 합법적 교사가 아님을 인정하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가 실제로 했듯이 그들에게 대답할 때, **요한**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은 반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의도가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망신당했다고 추측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매우 만족시켰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을 대하는 그의 이런 특별 재능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날 더 이상 질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자기들끼리 더 의논하려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에서 불성실과 위선을 재빨리 간파했다. 보통 사람들조차, **주님**의 도덕적 위엄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의도적 위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사두개인**으로 하여금 **바리새인** 편에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때 **산헤드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Jesus, saying: “Concerning the baptism of John, we cannot answer; we do not know.” And they so answered the Master because they had reasoned among themselves: If we shall say from heaven, then will he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and perchance will add that he received his authority from John; and if we shall say from men, then might the multitude turn upon us, for most of them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and so they were compelled to come before Jesus and the people confessing that they, the religious teachers and leaders of Israel, could not (or would not) express an opinion about John’s mission. And when they had spoken, Jesus, looking down upon them,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173:2.6 (1892.3) Jesus never intended to appeal to John for his authority; John had never been ordained by the Sanhedrin. Jesus’ authority was in himself and in his Father’s eternal supremacy.

173:2.7 (1892.4) In employing this method of dealing with his adversaries, Jesus did not mean to dodge the question. At first it may seem that he was guilty of a masterly evasion, but it was not so. Jesus was never disposed to take unfair advantage of even his enemies. In this apparent evasion he really supplied all his hearers with the answer to the Pharisees’ question as to the authority behind his mission. They had asserted that he performed by authority of the prince of devils. Jesus had repeatedly asserted that all his teaching and works were by the power and authority of his Father in heaven. This the Jewish leaders refused to accept and were seeking to corner him into admitting that he was an irregular teacher since he had never been sanctioned by the Sanhedrin. In answering them as he did, while not claiming authority from John, he so satisfied the people with the inference that the effort of his enemies to ensnare him was effectively turned upon themselves and was much to their discredit in the eyes of all present.

173:2.8 (1892.5) And it was this genius of the Master for dealing with his adversaries that made them so afraid of him. They attempted no more questions that day; they retired to take further counsel among themselves. But the people were not slow to discern the dishonesty and insincerity in these questions asked by the Jewish rulers. Even the common folk could not fail to distinguish between the moral majesty of the Master and the designing hypocrisy of his enemies. But the cleansing of the temple had brought the Sadducees over to the side of the Pharisees in perfecting the plan to destroy Jesus. And the Sadducees now represented a majority of the Sanhedrin.

3. 두 아들 비유

3. PARABLE OF THE TWO SONS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언으로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요한**의 사명을 의심하고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 활동에 일체히 대적하니, 내가 말하는 한 비유를 들어봐라: 어떤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주(地主)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아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솔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곳으로 갔다. 또한 그가 큰 아들을 찾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위선적이고 신실치 못한 이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자,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묻겠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사람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말씀한 아들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렇더라도;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거절한 것 같더라도, 내가 확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보다 먼저 깨달을 것이며,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기에 큰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내 가르침을 믿지 않지만, 평민들은 내 말을 기쁘게 듣는다.”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경멸하지 않았다. 그가 망신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 및 실천 체계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지 않았지만, 예식, 전통, 및 권위로 가득 찬 옛 종교와,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종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충돌이 발생했다.

열두 사도는, 이 시간 동안 내내 **주님** 곁에 서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진행사항에 끼여 들지 않았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육신 속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했으나, 이 **유월절** 주간에 공개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에는 각 사람이 똑같이 순종했다.

4.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여러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우두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의논하기 위해 물러간 후에, **주님**은 듣고 있는 대중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

“어느 선량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가꾸게 됐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173:3.1 (1893.1) As the caviling Pharisees stood there in silence before Jesus, he looked down on them and said: “Since you are in doubt about John’s mission and arrayed in enmity against the teaching and the works of the Son of Man, give ear while I tell you a parable: A certain great and respected landholder had two sons, and desiring the help of his sons in the management of his large estates, he came to one of them, saying, ‘Son, go work today in my vineyard.’ And this unthinking son answered his father, saying, ‘I will not go’;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When he had found his older son, likewise he said to him, ‘Son, go work in my vineyard.’ And this hypocritical and unfaithful son answered, ‘Yes, my father, I will go.’ But when his father had departed, he went not. Let me ask you, which of these sons really did his father’s will?”

173:3.2 (1893.2) And the people spoke with one accord, saying, “The first son.” And then said Jesus: “Even so; and now do I declare that the publicans and harlots, even though they appear to refuse the call to repentance, shall see the error of their way and go on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who make great pretensions of serving the Father in heaven while you refuse to do the works of the Father. It was not you, the Pharisees and scribes, who believed John, but rather the publicans and sinners; neither do you believe my teaching, but the common people hear my words gladly.”

173:3.3 (1893.3) Jesus did not despise the Pharisees and Sadducees personally. It was their systems of teaching and practice which he sought to discredit. He was hostile to no man, but here was occurring the inevitable clash between a new and living religion of the spirit and the older religion of ceremony, tradition, and authority.

173:3.4 (1893.4) All this time the twelve apostles stood near the Master, but they did not in any manner participate in these transactions. Each one of the twelve was reacting in his own peculiar way to the events of these closing days of Jesus’ ministry in the flesh, and each one likewise remained obedient to the Master’s injunction to refrain from all public teaching and preaching during this Passover week.

4. PARABLE OF THE ABSENT LANDLORD

173:4.1 (1893.5) When the chief Pharisees and the scribes who had sought to entangle Jesus with their questions had finished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two sons, they withdrew to take further counsel, and the Master,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listening multitude, told another parable:

173:4.2 (1893.6) “There was a good man who was a householder, and he planted a vineyard. He set a

을 짜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파수꾼을 위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난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겼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오자,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소작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과실을 바치지 않기로 했으며; 그 대신 종들을 공격해서,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돌을 던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해, 더 신임하는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 종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다. 그러자 주인은 가장 아끼는 청지기를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죽여 버렸다. 그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 다른 종을 보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종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으며, 집주인은 이렇게 대접받자, 이 배은망덕한 소작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이 내 종들은 학대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은 틀림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후에 그를 죽였다. 그들이 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죽였는지 포도원 주인이 들었을 때, 그가 이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비유와 **예수**의 질문을 듣자,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 때에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정직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비유가 **유대** 민족, 그 민족이 선지자들을 대우한 것, 그리고 지금 **예수**와 천국 복음을 거부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무리가 군중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춘 후에 말씀했다: "너희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너희가 알며, **사람의 아들**을 거부하기로 너희의 마음 속에 작정한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가까이 서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자세히 둘러보면서 말씀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씀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먼지와 재가 되고, 바

hedge about it, dug a pit for the wine press, and built a watchtower for the guards. Then he let this vineyard out to tenants while he went on a long journey into another country. And when the season of the fruits drew near, he sent servants to the tenants to receive his rental. But they took counsel among themselves and refused to give these servants the fruits due their master; instead, they fell upon his servants, beating one, stoning another, and sending the others away empty-handed. And when the householder heard about all this, he sent other and more trusted servants to deal with these wicked tenants, and these they wounded and also treated shamefully. And then the householder sent his favorite servant, his steward, and him they killed. And still, in patience and with forbearance, he dispatched many other servants, but none would they receive. Some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and when the householder had been so dealt with, he decided to send his son to deal with these ungrateful tenants, saying to himself, 'They may mistreat my servants, but they will surely show respect for my beloved son.' But when these unrepentant and wicked tenants saw the son,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and then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laid hold on him, and after casting him out of the vineyard, they killed him. When the lord of that vineyard shall hear how they have rejected and killed his son, what will he do to those ungrateful and wicked tenants?"

173:4.3 (1894.1) And when the people heard this parable and the question Jesus asked, they answered, "He will destroy those miserable men and let out his vineyard to other and honest farmers who will render to him the fruits in their season." And when some of them who heard perceived that this parable referred to the Jewish nation and its treatment of the prophets and to the impending rejection of Jesus 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y said in sorrow, "God forbid that we should go on doing these things."

173:4.4 (1894.2) Jesus saw a group of the Sadducees and Pharisees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crowd, and he paused for a moment until they drew near him, when he said: "You know how your fathers rejected the prophets, and you well know that you are set in your hearts to reject the Son of Man." And then, looking with searching gaze upon those priests and elders who were standing near him, Jesus said: "Did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 abou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and which, when the people had discovered it, was made into the cornerstone? And so once more do I warn you that, if you continue to reject this gospel, presently will the kingdom of God be taken away from you and be given to a people willing to receive the good news and to bring forth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there is a mystery about this stone, seeing that whoso falls

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자기들 및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씀했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대중을 두려워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더 의논하려고 물러갔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다음 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서로 손을 잡았다.

upon it, while he is thereby broken in pieces, shall be saved; but on whomsoever this stone falls, he will be ground to dust and his ashes scattered to the four winds.”

173:4.5 (1894.3) When the Pharisees heard these words, they understood that Jesus referred to themselves and the other Jewish leaders. They greatly desired to lay hold on him then and there, but they feared the multitude. However, they were so angered by the Master's words that they withdrew and held further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how they might bring about his death. And that night both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joined hands in the plan to entrap him the next day.

5. 결혼 잔치 비유

서기관과 관리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께서는 모인 인파를 다시 돌아보면서 결혼 잔치 비유를 이야기했다. 그가 말씀했다:

“하늘 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결혼 잔치가 왕의 궁전에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는 오기를 거부했다. 초대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다른 종과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초대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준비된 내 만찬을 보라고 말하라. 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앞으로 있을 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혹은 농장으로, 혹은 그릇 굽는 곳으로, 혹은 작업장으로, 각기 일터로 가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심부름꾼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기까지 했다. 왕은 자신이 선택한 손님들, 심지어 처음 초청에 응하여 결혼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선택한 심부름꾼들을 공격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진노했다. 그러자 모욕당한 이 왕은, 자기 군대와 동맹국 군대에 명령하여, 반역한 이 살인자들을 궤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불사르게 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마친 후에, 결혼 잔치를 위해 다른 날을 정하고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았으니, 지금 즉시 거리와 큰길 그리고 성읍 밖으로라도 가서, 외국인일지라도 눈에 띄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청

5. PARABLE OF THE MARRIAGE FEAST

173:5.1 (1894.4) After the scribes and rulers had withdrawn, Jesus addressed himself again to the assembled crowd and spoke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He said:

173:5.2 (1894.5)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likened to a certain king who made a marriage feast for his son and dispatched messengers to call those who had previously been invited to the feast to come, saying, ‘Everything is ready for the marriage supper at the king's palace.’ Now, many of those who had once promised to attend, at this time refused to come. When the king heard of these rejections of his invitation, he sent other servants and messengers, saying: ‘Tell all those who were bidden, to come, for, behold, my dinner is ready. My oxen and my fatlings are killed, and all is in readiness for the celebration of the forthcoming marriage of my son.’ But again did the thoughtless make light of this call of their king, and they went their ways, one to the farm, another to the pottery, and others to their merchandise. Still others were not content thus to slight the king's call, but in open rebellion they laid hands on the king's messengers and shamefully mistreated them, even killing some of them. And when the king perceived that his chosen guests, even those who had accepted his preliminary invitation and had promised to attend the wedding feast, had finally rejected his call and in rebellion had assaulted and slain his chosen messengers, he was exceedingly wroth. And then this insulted king ordered out his armies and the armies of his allies and instructed them to destroy these rebellious murderers and to burn down their city.

173:5.3 (1895.1) “And when he had punished those who spurned his invitation, he appointed yet another day for the wedding feast and said to his messengers: ‘They who were first bidden to the wedding were not worthy; so go now into the parting of the ways and into the highways and

하여, 이 결혼 잔치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리하여 이 종들은, 큰길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다가 면서 발견하는 대로, 많은 사람, 즉 선량한 자나 불량한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기꺼이 응하는 손님으로 결혼식장이 가득 차게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왕은 모든 손님에게 결혼 예복을 무료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친구여, 이런 때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내 접대실에 들어왔단 말이냐?'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유구무언이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이 경솔한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어, 내 환대를 거절하고 내 초청을 거절한 모든 다른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라. 내 초청을 기쁘게 받고,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손님용 예복을 입음으로써 내게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명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대중을 흠여 보내려 할 때, 인정 많은 어떤 신자가 인파 사이를 헤치고 그에게 나와서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초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 표적만 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말씀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거의 오십 년이나 걸려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그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사도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으나, 그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이날 오후 네 시쯤, 예수께서는 손짓하여 사도들을 부르시고, 저녁 식사와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려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남은 **유월절** 주간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음날 성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라고,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에게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다음날 아침, **겔세마네**의 대중용 야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베다니**의 **시몬**이 소유한 작은 땅에 있는 언덕 골짜기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 월요일 밤에, **감람산** 서쪽 기슭을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은 모두 다시 침묵했다. 이 열두 명의 남자는 전과는 달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벌어졌던 극적인 성전 청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강대한 능력을 증거할 것이

even beyond the borders of the city, and as many as you shall find, bid even these strangers to come in and attend this wedding feast.' And then these servants went out into the highways and the out-of-the-way places, and they gathered together as many as they found, good and bad, rich and poor, so that at last the wedding chamber was filled with willing guests. When all was ready, the king came in to view his guests, and much to his surprise he saw there a man without a wedding garment. The king, since he had freely provided wedding garments for all his guests, addressing this man, said: 'Friend, how is it that you come into my guest chamber on this occasion without a wedding garment?' And this unprepared man was speechless. Then said the king to his servants: 'Cast out this thoughtless guest from my house to share the lot of all the others who have spurned my hospitality and rejected my call. I will have none here except those who delight to accept my invitation, and who do me the honor to wear those guest garments so freely provided for all.'"

173:5.4 (1895.2) After speaking this parable, Jesus was about to dismiss the multitude when a sympathetic believer, making his way through the crowds toward him, asked: "But, Master, how shall we know about these things? how shall we be ready for the king's invitation? what sign will you give us whereby we shall know that you are the Son of God?" And when the Master heard this, he said, "Only one sign shall be given you." And then, pointing to his own body, he continued,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But they did not understand him, and as they dispersed, they talked among themselves, saying, "Almost fifty years has this temple been in building, and yet he says he will destroy it and raise it up in three days." Even his own apostles did not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is utterance, but subsequently, after his resurrection, they recalled what he had said.

173:5.5 (1895.3) About four o'clock this afternoon Jesus beckoned to his apostles and indicated that he desired to leave the temple and to go to Bethany for their evening meal and a night of rest. On the way up Olivet Jesus instructed Andrew, Philip, and Thomas that, on the morrow, they should establish a camp nearer the city which they could occupy during the remainder of the Passover week. In compliance with this instruction the following morning they pitched their tents in the hillside ravine overlooking the public camping park of Gethsemane, on a plot of ground belonging to Simon of Bethany.

173:5.6 (1896.1) Again it was a silent group of Jews who made their way up the western slope of Olivet on this Monday night. These twelve men, as never before, were beginning to sense that something tragic was about to happen. While the dramatic cleansing of the temple during the early morning

라고 기대했지만, 오후 내내 있었던 사건들에서, 그들은 모두, **유대** 권세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확실히 거부하는 한심한 장면만 볼 수 있었다. 사도들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극도의 불확실함에 단단히 사로잡혔다. 방금 지나간 날에 있었던 사건과 절박한 운명 사이에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꼈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패오** 쌍둥이 형제마저, **주님**의 생애에 관계된 사건이 마지막 고비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had aroused their hopes of seeing the Master assert himself and manifest his mighty powers, the events of the entire afternoon only operated as an anticlimax in that they all pointed to the certain rejection of Jesus' teaching by the Jewish authorities. The apostles were gripped by suspense and were held in the firm grasp of a terrible uncertainty. They realized that only a few short days could intervene between the events of the day just passed and the crash of an impending doom. They all felt that something tremendous was about to happen, but they knew not what to expect. They went to their various places for rest, but they slept very little. Even the Alpheus twins were at last aroused to the realization that the events of the Master's life were moving swiftly toward their final culmination.

제174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 173

유랜시아 책

175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74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섹션

소개

1. 신의 용서
2. 유대인 관리의 질문
3. 사두개인과 부활
4. 큰 계명
5. 탐구하는 그리스인

소개

이 화요일 아침 일곱 시쯤에 예수께서는, 사도, 여자 단체, 그리고 가까이 따르는 이십 여명의 다른 제자를 시몬의 집에서 만났다. 예수께서는 이때 나사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베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속히 피신하라고 그에게 지시했으며, 그는 나중에 그 도시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선교 운동에 가담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이 많은 시몬에게도 작별을 고했고, 여자 단체에게 이별의 충고를 했으며, 그들에게 다시는 정식으로 강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아침에 열두 사도 각자에게 친히 인사했다. 안드레에게는, “곧 다가올 사건들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해라. 형제들을 굳건히 지키고, 기가 꺾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다.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힘이 나 강철로 만든 무기에 의지하지 마라. 영원한 반석이라는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야고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해라. 네 신앙을 확고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요한에게는, “온화하고; 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며; 관대해라. 그리고 여러 면에서 내가 너를 신뢰했다는 것을 기억하

PAPER 174
TUESDAY MORNING IN THE
TEMPLE
SECTIONS

Introduction

1. Divine Forgiveness
2. Questions by the Jewish Rulers
3. The Sadducees and the Resurrection
4. The Great Commandment
5. The Inquiring Greeks

INTRODUCTION

174:0.1 (1897.1) ABOUT seven o'clock on this Tuesday morning Jesus met the apostles, the women's corps, and some two dozen other prominent disciples at the home of Simon. At this meeting he said farewell to Lazarus, giving him that instruction which led him so soon to flee to Philadelphia in Perea, where he later became connected with the missionary movement having its headquarters in that city. Jesus also said goodbye to the aged Simon, and gave his parting advice to the women's corps, as he never again formally addressed them.

174:0.2 (1897.2) This morning he greeted each of the twelve with a personal salutation. To Andrew he said: "Be not dismayed by the events just ahead. Keep a firm hold on your brethren and see that they do not find you downcast." To Peter he said: "Put not your trust in the arm of flesh nor in weapons of steel. Establish yourself on the spiritual foundations of the eternal rocks." To James he said: "Falter not because of outward appearances. Remain firm in your faith, and you shall soon know of the reality of that which you believe." To John he said: "Be gentle; love even your enemies; be tolerant. And remember that I have trusted you with many things." To Nathaniel

라”고 말씀했다.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말며; 천국 대사로써 위탁임무에 진실 되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들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마태**에게는, “너를 천국에 들어 보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해라. 네 영원한 상급을 아무에게도 속아서 빼가지 않아야 한다. 네가 필사자 본성의 성향을 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다.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걸어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과, 내 모든 충실한 대사들이 마침내 저 위의 나라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알패오** 쌍둥이에게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마음에서 우리나는 애정에 충실하고, 지위 높은 자들 또는 그 민족의 변하는 태도를 신뢰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다. **열심당 시몬**에게는, “**시몬**아, 네가 실망으로 가득하겠지만, 네 영은 네게 닥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내 영이 네게 가르쳐줄 것이다. 참된 영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림자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또한 네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선을 행하기에 싫증내지 말며; 아첨하는 미끄러운 길과 조롱하는 독화살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인사를 마친 후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 있는 마지막 남은 날들 동안 본부로 사용할,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을 지낼, **겔세마네** 야영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기슭을 반쯤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 서서, 네 사도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했다.

1. 신의 용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난 며칠 동안 서로 다른 의견으로 토론에 열중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로 합의했고,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찬미와 경배의 차이에 관한 대화에 끼어들면서 물었다: “**주님, 야고보**와 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계된 당신의 교훈에 관해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당신께서 가르쳤다고 **야고보**는 주장하지만, 나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he said: “Judge not by appearances; remain firm in your faith when all appears to vanish; be true to your commission as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To Philip he said: “Be unmoved by the events now impending. Remain unshaken, even when you cannot see the way. Be loyal to your oath of consecration.” To Matthew he said: “Forget not the mercy that received you into the kingdom. Let no man cheat you of your eternal reward. As you have withstood the inclinations of the mortal nature, be willing to be steadfast.” To Thomas he said: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just now you must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Doubt not that I am able to finish the work I have begun, and that I shall eventually see all of my faithful ambassadors in the kingdom beyond.” To the Alpheus twins he said: “Do not allow the things which you cannot understand to crush you. Be true to the affections of your hearts and put not your trust in either great men or the changing attitude of the people. Stand by your brethren.” And to Simon Zelotes he said: “Simon, you may be crushed by disappointment, but your spirit shall rise above all that may come upon you. What you have failed to learn from me, my spirit will teach you. Seek the true realities of the spirit and cease to be attracted by unreal and material shadows.” And to Judas Iscariot he said: “Judas, I have loved you and have prayed that you would love your brethren. Be not weary in well doing; and I would warn you to beware the slippery paths of flattery and the poison darts of ridicule.”

174:0.3 (1897.3) And when he had concluded these greetings, he departed for Jerusalem with Andrew, Peter, James, and John as the other apostles set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Gethsemane camp, where they were to go that night, and where they made their headquarters for the remainder of the Master's life in the flesh. About halfway down the slope of Olivet Jesus paused and visited more than an hour with the four apostles.

1. DIVINE FORGIVENESS

174:1.1 (1898.1) For several days Peter and James had been engaged in discussing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the Master's teaching regarding the forgiveness of sin. They had both agreed to lay the matter before Jesus, and Peter embraced this occasion as a fitting opportunity for securing the Master's counsel. Accordingly, Simon Peter broke in on the conversation dealing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praise and worship, by asking: “Master, James and I are not in accord regarding your teachings having to do with the forgiveness of sin. James claims you teach that the Father forgives us even before we ask him, and I maintain that repentance and confession must precede the forgiveness. Which of us is right? what do you say?”

예수께서는 잠시 침묵한 후에, 네 사도 전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나서 대답했다: “형제들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자녀를 향해, 현명한 부모가 마음에 품은 이해심 많은 동정심을, 너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에게, 정상적인 평범한 자녀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모든 불화(不和)는 자녀의 회개와 부모의 용서를 나중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게 만드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랑하는 심정과 관련된 관계들을 이해하면 된다.

“어떤 아버지든지 그 일부분이 자녀 속에 살아있다. 아버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우선권과 우세한 이해력을 갖는다. 부모는, 비교적 더 진보된 부모로서의 성숙성, 즉 더 나이 많은 편의 원숙한 체험에 비취서 자녀의 미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 세상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우에, 신성한 부모는 무한하고 신성한 동정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신(神)의 용서는 필연적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이해에, 즉 자녀의 잘못된 선택 및 잘못된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완전한 지식에, 이 용서는 내재적이고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심 있는 자비를 포함한다.

“현명한 사람은, 동료의 내적 충동을 이해할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외견상으로 보이는 그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런 역량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너희가 현명한 부모라면, 이 방식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심지어 일시적인 오해로 인해 외견상으로는 너희가 결별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용서한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의 깊이를 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분리돼 있다는 어떤 죄의식을 종종 느끼게 돼 있지만, 참된 아버지는 그런 분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죄는 피조물이 의식하는 체험이며, 하나님의 의식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속성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지 못했는가, 즉 어른으로서 동정심, 이해심, 및 사랑을 얼마나 달성하지 못했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 너희는, 자녀와 동료의 참된 열망과 내적 본성을 무시하는 그 정도에 정비례하는 만큼,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키우고 있다. 사랑이란 인생의 신성하고 내적인 충동의 결실이다. 그것은 이해심에 기초하며, 이타적 봉사로 육성되며, 지혜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174:1.2 (1898.2) After a short silence Jesus looked significantly at all four and answered: “My brethren, you err in your opinions because you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ose intimate and loving relations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between man and God. You fail to grasp that understanding sympathy which the wise parent entertains for his immature and sometimes erring child. It is indeed doubtful whether intelligent and affectionate parents are ever called upon to forgive an average and normal child. Understanding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attitudes of love effectively prevent all those estrangements which later necessitate the readjustment of repentance by the child with forgiveness by the parent.

174:1.3 (1898.3) “A part of every father lives in the child. The father enjoys priority and superiority of understanding in all matters connected with the child-parent relationship. The parent is able to view the immaturity of the child in the light of the more advanced parental maturity, the riper experience of the older partner. With the earthly child and the heavenly Father, the divine parent possesses infinity and divinity of sympathy and capacity for loving understanding. Divine forgiveness is inevitable; it is inherent and inalienable in God's infinite understanding, in his perfect knowledge of all that concerns the mistaken judgment and erroneous choosing of the child. Divine justice is so eternally fair that it unfailingly embodies understanding mercy.

174:1.4 (1898.4) “When a wise man understands the inner impulses of his fellows, he will love them. And when you love your brother, you have already forgiven him. This capacity to understand man's nature and forgive his apparent wrongdoing is Godlike. If you are wise parents, this is the way you will love and understand your children, even forgive them when transient misunderstanding has apparently separated you. The child, being immature and lacking in the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epth of the child-father relationship, must frequently feel a sense of guilty separation from a father's full approval, but the true father is never conscious of any such separation. Sin is an experience of creature consciousness; it is not a part of God's consciousness.

174:1.5 (1898.5) “Your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forgive your fellows is the measure of your immaturity, your failure to attain adult sympathy, understanding, and love. You hold grudges and nurse vengefulness in direct proportion to your ignorance of the inner nature and true longings of your children and your fellow beings. Love is the outworking of the divine and inner urge of life. It is founded on understanding, nurtured by unselfish service, and perfected in wisdom.”

2. 유대인 관리의 질문

월요일 저녁에, 서기관,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 중에서 선택된 오십여 명의 추가적인 지도자와 **산헤드린** 사이에 회의가 열렸다. **예수**께서 평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공연히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리라는 것이 이 모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또한 그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시키게 되기 전에,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여러 무리에서 유식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다음 날 아침 성전에 보내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심지어 **헤롯당원**도, **유월절**에 대중의 눈앞에서 **예수**를 망신시키기 위한 이 계획에 모두 결합했다.

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 뜰에 도착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몇 마디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런 목적을 위해 미리 연습했던, 교육기관에서 온 젊은 학생들 한 무리가 앞으로 나왔고, 그들의 대변자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의로운 선생님이심을 알고, 진리의 길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며,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며,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학생일 따름이고,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것들에 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알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려 하나?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돈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테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했다: “이 동전에 새겨진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젊은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한 패인 **헤롯당원**은 그의 앞을 떠났으며, 모든 사람, 심지어 **사두개인**까지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도, **주님**의 예상치 못했던 총명한 답변에 매우 경탄했다.

하루 전날, 그 관리들은 성직(聖職)에 관련된 권세의 문제로 대중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며, 이제는 세속 권세를 손상시킬만한 문제에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다. 이때 **빌라도**와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가 감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도록 대답하면, 즉시 **로마** 권세자들에게 가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를 씌우고자 했다. 이와는 반대로, 그가 여러 가지 말로

2. QUESTIONS BY THE JEWISH RULERS

174:2.1 (1899.1) On Monday evening there had been held a council between the Sanhedrin and some fifty additional leaders selected from among the scribes, Pharisees, and the Sadducees. It was the consensus of this meeting that it would be dangerous to arrest Jesus in public because of his hold upon the affections of the common people. It was also the opinion of the majority that a determined effort should be made to discredit him in the eyes of the multitude before he should b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Accordingly, several groups of learned men were designated to be on hand the next morning in the temple to undertake to entrap him with difficult questions and otherwise to seek to embarrass him before the people. At last, the Pharisees, Sadducees, and even the Herodians were all united in this effort to discredit Jesus in the eyes of the Passover multitudes.

174:2.2 (1899.2) Tuesday morning, when Jesus arrived in the temple court and began to teach, he had uttered but few words when a group of the younger students from the academies, who had been rehearsed for this purpose, came forward and by their spokesman addressed Jesus: “Master, we know you are a righteous teacher, and we know that you proclaim the ways of truth, and that you serve only God, for you fear no man, and that you are no respecter of persons. We are only students, and we would know the truth about a matter which troubles us; our difficulty is this: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Shall we give or shall we not give?” Jesus, perceiving their hypocrisy and craftiness, said to them: “Why do you thus come to tempt me? Show me the tribute money, and I will answer you.” And when they handed him a denarius, he looked at it and said, “Whose image and superscription does this coin bear?” And when they answered him, “Caesar’s,” Jesus said,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render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174:2.3 (1899.3) When he had thus answered these young scribes and their Herodian accomplices, they withdrew from his presence, and the people, even the Sadducees, enjoyed their discomfiture. Even the youths who had endeavored to entrap him marveled greatly at the unexpected sagacity of the Master’s answer.

174:2.4 (1899.4) The previous day the rulers had sought to trip him before the multitude on matter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having failed, they now sought to involve him in a damaging discussion of civil authority. Both Pilate and Herod were in Jerusalem at this time, and Jesus’ enemies conjectured that, if he would dare to advise against the payment of tribute to Caesar, they could go at once before the Roman

써 세금을 바치도록 충고한다면, 그런 말이 **유대인** 청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재빨리 이용하여, 대중의 호의와 애정을 이간시키려고 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모든 의도가 실패했는데, 이는, “화폐가 정당하다면, 세금 징수도 정당하다”는 것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산헤드린**이 내린, 잘 알려진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했다. 그들의 질문에, “하지 말라”는 대답은 반역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하라”고 대답하면, 당시에 깊이 뿌리박힌 민족자결주의 정서에 타격을 주게 됐을 것이다. **주님**은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중적으로 대답하는 지혜를 동원했을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결코 회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조차 항상 현명하게 처리했다.

3. 사두개인과 부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나와서 질문했는데, 이들은 학식 있고 교활한 **사두개인**이었다. 그들의 대변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해 자손을 낳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여섯 명의 동생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으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동생이 모두 그 여자를 취했지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취했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았으며; 그 외에도 죽은 형제를 위해 다른 형제가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관습은, 실제로는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사문화(死文化)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가 말씀했다: “너희는 모두 **성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질문을 하는 잘못을 범한다.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도 갈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의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장가

authorities and charge him with sedition. On the other hand, if he should advise the payment of tribute in so many words, they rightly calculated that such a pronouncement would greatly wound the national pride of his Jewish hearers, thereby alienating the good will and affection of the multitude.

174:2.5 (1899.5) In all this the enemies of Jesus were defeated since it was a well-known ruling of the Sanhedrin, made for the guidance of the Jews dispersed among the gentile nations, that the “right of coinage carried with it the right to levy taxes.” In this manner Jesus avoided their trap. To have answered “No” to their question would have been equivalent to inciting rebellion; to have answered “Yes” would have shocked the deep-rooted nationalist sentiments of that day. The Master did not evade the question; he merely employed the wisdom of making a double reply. Jesus was never evasive, but he was always wise in his dealings with those who sought to harass and destroy him.

3. THE SADDUCEES AND THE RESURRECTION

174:3.1 (1900.1) Before Jesus could get started with his teaching, another group came forward to question him, this time a company of the learned and crafty Sadducees. Their spokesman, drawing near to him, said: “Master, Moses said that if a married man should die, leaving no children, his brother should take the wife and raise up seed for the deceased brother. Now there occurred a case where a certain man who had six brothers died childless; his next brother took his wife but also soon died, leaving no children. Likewise did the second brother take the wife, but he also died leaving no offspring. And so on until all six of the brothers had had her, and all six of them passed on without leaving children. And then, after them all, the woman herself died. Now, what we would like to ask you is this: In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all seven of these brothers had her?”

174:3.2 (1900.2) Jesus knew, and so did the people, that these Sadducees were not sincere in asking this question because it was not likely that such a case would really occur; and besides, this practice of the brothers of a dead man seeking to beget children for him was practically a dead letter at this time among the Jews. Nevertheless, Jesus condescended to reply to their mischievous question. He said: “You all do err in asking such questions because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the living power of God. You know that the sons of this world can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음을 너희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진보 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빛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체험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선포한다. 너희는 모두 그분 안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필사 실존을 소유한다."

예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 **사두개인**은 물러갔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비난해야 할 처지임을 알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에게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사두개인**은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으며, 평민들은 그의 가르침의 지혜에 감탄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을 대하면서 **모세**만 언급한 것은, 이 종교적_정치적 분파가 **모세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의 책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선지자들의 교훈을 교리적 신조(信條)의 기초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중에 **주님**은, 부활이라는 기법을 통해 필사 피조물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했지만, 인간 신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쑤는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쑤이었다.

사두개인은, 공개적인 박해가 그에 대한 동정심을 대중의 마음 속에 반드시 더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예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해서 위축되게 하려 했다.

4. 큰 계명

또 다른 **사두개인** 무리는, 천사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혼란시키도록 지시 받았지만, 부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동무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게 됐을 때,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여 침묵하기로 결정했으며; 질문하지 않고 물러갔다. 혼란시키는 이런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공모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및 **헤롯당원**의 미리 계획된 술책이었으며,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예수**를 사람 앞에서 망신시키는 동시에, 사람을 동요하게 하는 그의 교훈을 선포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that they who are accounted worthy to attain the worlds to com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Those who experience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re more like the angels of heaven, and they never die. These resurrected ones are eternally the sons of God; they are the children of light resurrected into the progress of eternal life. And even your Father Moses understood this, for, in connection with his experiences at the burning bush, he heard the Father say,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so, along with Moses, do I declare that my Father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In him you all do live, reproduce, and possess your mortal existence."

174:3.3 (1900.3) When Jesus had finished answering these questions, the Sadducees withdrew, and some of the Pharisees so far forgot themselves as to exclaim, "True, true, Master, you have well answered these unbelieving Sadducees." The Sadducees dared not ask him any more questions, and the common people marveled at the wisdom of his teaching.

174:3.4 (1900.4) Jesus appealed only to Moses in his encounter with the Sadducees because this religio-political sect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only the five so-called Books of Moses; they did not allow that the teachings of the prophets were admissible as a basis of doctrinal dogmas. The Master in his answer, though positively affirming the fact of the survival of mortal creatures by the technique of the resurrection, did not in any sense speak approvingly of the Pharisaic beliefs in the resurrection of the literal human body. The point Jesus wished to emphasize was: That the Father had said, "I am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not I was their God.

174:3.5 (1900.5) The Sadducees had thought to subject Jesus to the withering influence of *ridicule*, knowing full well that persecution in public would most certainly create further sympathy for him in the minds of the multitude.

4. THE GREAT COMMANDMENT

174:4.1 (1901.1) Another group of Sadducees had been instructed to ask Jesus entangling questions about angels, but when they beheld the fate of their comrades who had sought to entrap him with question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they very wisely decided to hold their peace; they retired without asking a question. It was the prearranged plan of the confederated Pharisees, scribes, Sadducees, and Herodians to fill up the entire day with these entangling questions, hoping thereby to discredit Jesus before th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to prevent his having any time for the proclamation of his disturbing teachings.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했으며, 대변인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님**, 나는 율법사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계명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것인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는**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첫째와 같으며; 거기서 직접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근간(根幹)을 둔다.”

그 율법사는, **예수**께서 **유대인**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하여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모인 대중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말했다: “**주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정말로 잘 대답하셨으며; 온 마음과 이해력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며; 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를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친구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음을 내가 안다.”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가 **겔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님**의 야영지로 가서,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아브넬**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요시아**에게 세례 받았다.

다른 두 세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질문하려고 왔었지만, 더러는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더러는, 그를 함정에 빠뜨릴 책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뒀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정오 시간이 가까이 됐을 때,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단지 **바리새인**과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는 **구원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서기관 하나가 대답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나 아니냐에 대해, 제자들 사이에서조차 그동안 많은

174:4.2 (1901.2) Then came forward one of the groups of the Pharisees to ask harassing questions, and the spokesman, signaling to Jesus, said: “Master, I am a lawyer, and I would like to ask you which, in your opinion, is the greatest commandment?” Jesus answered: “There is but one commandment, and that one is the greatest of all, and that commandment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And the second commandment is like this first; indeed, it springs directly therefrom, and it 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174:4.3 (1901.3) When the lawyer perceived that Jesus had answered no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concept of Jewish religion, but that he had also answered wisely in the sight of the assembled multitude, he thought it the better part of valor openly to commend the Master’s reply. Accordingly, he said: “Of a truth, Master, you have well said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ne beside him; and that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understanding, and strength, and also to love one’s neighbor as one’s self,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and we are agreed that this great commandment is much more to be regarded than all th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the lawyer answered thus discreetly, Jesus looked down upon him and said, “My friend, I perceive that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174:4.4 (1901.4) Jesus spoke the truth when he referred to this lawyer as being “not far from the kingdom,” for that very night he went out to the Master’s camp near Gethsemane, professe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as baptized by Josiah, one of the disciples of Abner.

174:4.5 (1901.5) Two or three other group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present and had intended to ask questions, but they were either disarmed by Jesus’ answer to the lawyer, or they were deterred by the discomfiture of all who had undertaken to ensnare him. After this no man dared to ask him another question in public.

174:4.6 (1901.6) When no more questions were forthcoming, and as the noon hour was near, Jesus did not resume his teaching but was content merely to ask the Pharisees and their associates a question. Said Jesus: “Since you ask no more questions, I would like to ask you one. What do you think of the Deliverer? That is, whose son is he?” After a brief pause one of the scribes answered, “The Messiah is the son of David.” And since Jesus knew that there had been much debate, even among his own disciples, as to

논란이 있었음을 **예수**께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했다: “만일 **구원주**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에서, 바로 그 **다윗**이 영으로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대적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 편에 앉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를 **주(主)**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관리,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에 결코 대답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메시아** 대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라고 바꿈으로써 곤란을 피하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는 저작품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조금 전에는 **사두개인**이 **주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바리새인**의 실패를 **사두개인**이 기뻐했으며; 그러나 그런 경쟁심은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예수**의 교훈과 행위를 중지시키는 일에 합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적 견해 차이를 재빨리 잊었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을 하는 동안 내내, 평민들은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5. 탐구하는 그리스인

정오 무렵에, **빌립**이 **겔세마네** 근처에 그날 설치된 새 야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을 때, 외국인 파견대표단, 즉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로마**에서 온 **그리스인** 신자 일행이 말을 걸어왔으며, 그들의 대변인이 사도에게 말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리켜 줬으므로; 우리가 당신께 왔는데, 사도님, 당신의 **주님**이 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은 탁월하고 탐구적인 이 **그리스** 이방인을 시장 바닥에서 만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으며, **예수**께서 열두 사도 모두에게, **유월절** 주간에는 어떤 공개적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너무 확실하게 지시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혼란스러웠다. 또한 그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이방인이었으므로 당황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거나 가까이 사는 잘 아는 이방인이었다면, 그가 두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이 **그리스인**에게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했다. 그가 급히 사라지자, 그들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안드레**와 다른 사도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셉**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으며; **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내서,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했고, 그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인**에게로 **안드레**와 함께 돌아왔다.

빌립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했으므로, **안드**

whether or not he was the son of David, he asked this further question: “If the Deliverer is indeed the son of David, how is it that, in the Psalm which you accredit to David, he himself, speaking in the spirit, say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on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the footstool of your feet.’ If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Although the rulers, the scribes, and the chief priests made no reply to this question, they likewise refrained from asking him any more questions in an effort to entangle him. They never answered this question which Jesus put to them, but after the Master’s death they attempted to escape the difficulty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Psalm so as to make it refer to Abraham instead of the Messiah. Others sought to escape the dilemma by disallowing that David was the author of this so-called Messianic Psalm.

174:4.7 (1902.1) A short time back the Pharisees had enjoyed the manner in which the Sadducees had been silenced by the Master; now the Sadducees were delighted by the failure of the Pharisees; but such rivalry was only momentary; they speedily forgot their time-honored differences in the united effort to stop Jesus’ teachings and doings. But throughout all of these experiences the common people heard him gladly.

5. THE INQUIRING GREEKS

174:5.1 (1902.2) About noontime, as Philip was purchasing supplies for the new camp which was that day being established near Gethsemane, he was accosted by a delegation of strangers, a group of believing Greeks from Alexandria, Athens, and Rome, whose spokesman said to the apostle: “You have been pointed out to us by those who know you; so we come to you, Sir, with the request to see Jesus, your Master.” Philip was taken by surprise thus to meet these prominent and inquiring Greek gentiles in the market place, and, since Jesus had so explicitly charged all of the twelve not to engage in any public teaching during the Passover week, he was a bit perplexed as to the right way to handle this matter. He was also disconcerted because these men were foreign gentiles. If they had been Jews or near-by and familiar gentiles, he would not have hesitated so markedly. What he did was this: He asked these Greeks to remain right where they were. As he hastened away, they supposed that he went in search of Jesus, but in reality he hurried off to the home of Joseph, where he knew Andrew and the other apostles were at lunch; and calling Andrew out, he explained the purpose of his coming, and then, accompanied by Andrew, he returned to the waiting Greeks.

174:5.2 (1902.3) Since Philip had about finished the

레와 그리스인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맞이했으며;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인 사도들과 여러 명의 수제자에게 말씀하는 동안에, 그들은 가까이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에게 사랑스런 _호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거부했다. 정말로 너희 가운데 다수가 스스로 내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고 하며,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代價} 없이 선포했으며; 영{靈} 속에서 더 풍성한, 기쁨, 자유, 그리고 생명이 함께하는 아들신분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여, 누가 우리 교혼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라고 쓴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했다. 내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기 눈을 멀게 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불신{不信}을 치유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난 몇 년 동안 애썼다.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음을 내가 알며; 너희 중에서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었다. 지금 이 방에는 한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사람, 즉 민족 협의회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다 와 있지만, 아직도 너희 중에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가 부득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안전과 충성심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회장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였음을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천국의 일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신실하게 참여했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그들 중에 30명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때 그들 앞에 선 예수께서는, 한 섭리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주님**은 그리스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도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는 **사람의 아들**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도 본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내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

purchasing of supplies, he and Andrew returned with the Greeks to the home of Joseph, where Jesus received them; and they sat near while he spoke to his apostles and a number of leading disciples assembled at this luncheon. Said Jesus:

174:5.3 (1902.4) “My Father sent me to this world to reveal his loving-kindness to the children of men, but those to whom I first came have refused to receive me. True, indeed, many of you have believed my gospel for yourselves, but the children of Abraham and their leaders are about to reject me, and in so doing they will reject Him who sent me. I have freely proclaimed the gospel of salvation to this people; I have told them of sonship with joy, liberty, and life more abundant in the spirit. My Father has done many wonderful works among these fear-ridden sons of men. But truly did the Prophet Isaiah refer to this people when he wrote: ‘Lord, who has believed our teachings? And to whom has the Lord been revealed?’ Truly have the leaders of my people deliberately blinded their eyes that they see not, and hardened their hearts lest they believe and be saved. All these years have I sought to heal them of their unbelief that they might be recipients of the Father’s eternal salvation. I know that not all have failed me; some of you have indeed believed my message. In this room now are a full score of men who were once members of the Sanhedrin, or who were high in the councils of the nation, albeit even some of you still shrink from open confession of the truth lest they cast you out of the synagogue. Some of you are tempted to love the glory of men more than the glory of God. But I am constrained to show forbearance since I fear for the safety and loyalty of even some of those who have been so long near me, and who have lived so close by my side.

174:5.4 (1903.1) “In this banquet chamber I perceive there are assembled Jews and gentiles in about equal numbers, and I would address you as the first and last of such a group that I may instruct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before I go to my Father.”

174:5.5 (1903.2) These Greeks had been in faithful attendance upon Jesus’ teaching in the temple. On Monday evening they had held a conference at the home of Nicodemus, which lasted until the dawn of day, and thirty of them had elected to enter the kingdom.

174:5.6 (1903.3) As Jesus stood before them at this time, he perceived the end of one dispensa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Greeks, the Master said:

174:5.7 (1903.4) “He who believes this gospel, believes not merely in me but in Him who sent me. When you look upon me, you see not only the Son of Man but also Him who sent m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nd whosoever will believe my teaching

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자유를 즉시 얻게 될 것이다. 내 동포, 즉 **유대인**이 나를 거부하고 내 교훈을 거절해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권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를 거부하고 내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내 **아버지**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께서 임명하시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시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너희 모두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하신 이 말씀은, 신성한 진리, 영원한 자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에게 선포한다. 곡식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자는, 땅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의 동료 필사자들의 성실한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때가 이르고 있음을 알며, 괴로운 심정이다. 내 민족이 천국을 단호히 거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 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 이방인들을 만나니 무척 기쁘다. 그럼에도, 나는 내 민족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해 괴롭다. 내게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미리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께 이 무서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세례 이전의 기간에 그에게 내주했던 **인격화된 조울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으며, 그가 눈에 떨 정도로 잠시 멈추자,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는 이 굉장한 영이 **나사렛 예수**께 말씀했다: “너의 증여들로 인해 내가 여러 번 영광 받았고, 내가 한 번 더 영광 받을 것이다.”

모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을 잠시 멈춘 것은 어떤 초인적 존재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

shall no longer abide in darkness. If you gentiles will hear me, you shall receive the words of life and shall enter forthwith into the joyous liberty of the truth of sonship with God. If my fellow countrymen, the Jews, choose to reject me and to refuse my teachings, I will not sit in judgment on them, for I came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offer it salvation. Nevertheless, they who reject me and refuse to receive my teaching shall be brought to judgment in due season by my Father and those whom he has appointed to sit in judgment on such as reject the gift of mercy and the truths of salvation. Remember, all of you, that I speak not of myself, but that I have faithfully declared to you that which the Father commanded I should reveal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ese words which the Father directed me to speak to the world are words of divine truth, everlasting mercy, and eternal life.

174:5.8 (1903.5) “But to both Jew and gentile I declare the hour has about come when the Son of Man will be glorified. You well know that, except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n good soil, it springs up again to life and bears much fruit. He who selfishly loves his life stands in danger of losing it; but he who i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shall enjoy a more abundant existence on earth and in heaven, life eternal. If you will truly follow me, even after I have gone to my Father, then shall you become my disciples and the sincere servants of your fellow mortals.

174:5.9 (1903.6) “I know my hour is approaching, and I am troubled. I perceive that my people are determined to spurn the kingdom, but I am rejoiced to receive these truth-seeking gentiles who come here today inquiring for the way of light. Nevertheless, my heart aches for my people, and my soul is distraught by that which lies just before me. What shall I say as I look ahead and discern what is about to befall me?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awful hour? No! For this very purpose have I come into the world and even to this hour. Rather will I say, and pray that you will join me: Father, glorify your name; your will be done.”

174:5.10 (1904.1)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his indwelling during prebaptismal times appeared before him, and as he paused noticeably, this now mighty spirit of the Father's representation spoke to Jesus of Nazareth, saying: “I have glorified my name in your bestowals many times, and I will glorify it once more.”

174:5.11 (1904.2) While the Jews and gentiles here assembled heard no voice, they could not fail to discern that the Master had paused in his speaking while a message came to him from some superhuman source. They all said, every

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내 사명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밝히고 인류를 해방시키려는 우리의 일치된 수고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렀고; 내가 이 세상 왕자를 내쳤으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확실히 이르고자 하는 것은, 만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며, 내 아버지의 공동체 속으로 동참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너희는 구원주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에게 버림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며;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두움과 혼돈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해라. 어두움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서 걸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원, 그리고 밤길을 걷는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으며, 그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침묵했고 깊이 묵상했다.

man to the one who was by him, “An angel has spoken to him.”

174:5.12 (1904.3) Then Jesus continued to speak: “All this has not happened for my sake but for yours. I know of a certainty that the Father will receive me and accept my mission in your behalf, but it is needful that you be encouraged and be made ready for the fiery trial which is just ahead. Let me assure you that victory shall eventually crown our united efforts to enlighten the world and liberate mankind. The old order is bringing itself to judgment; the Prince of this world I have cast down; and all men shall become free by the light of the spirit which I will pour out upon all flesh after I have ascended to my Father in heaven.

174:5.13 (1904.4) “And now I declare to you that I, if I be lifted up on earth and in your lives, will draw all men to myself and into the fellowship of my Father. You have believed that the Deliverer would abide on earth forever, but I declare that the Son of Man will be rejected by men, and that he will go back to the Father. Only a little while will I be with you; only a little time will the living light be among this darkened generation. Walk while you have this light so that the oncoming darkness and confusion may not overtake you. He who walks in the darkness knows not where he goes; but if you will choose to walk in the light, you shall all indeed become liberated sons of God. And now, all of you, come with me while we go back to the temple and I speak farewell words to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the Pharisees, the Sadducees, the Herodians, and the benighted rulers of Israel.”

174:5.14 (1904.5) Having thus spoken, Jesus led the way over the narrow streets of Jerusalem back to the temple. They had just heard the Master say that this was to be his farewell discourse in the temple, and they followed him in silence and in deep meditation.

제 175편. 마지막 성전 강론

⇨ 174

유랜시아 책

17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75편
마지막 성전 강론

섹션

소개

1. 강론
2. 유대인 각자의 신분
3.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4. 예루살렘의 정세

PAPER 175

THE LAST TEMPLE DISCOU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iscourse
2. Status of Individual Jews
3. The Fateful Sanhedrin Meeting
4. The Situation in Jerusalem

소개

화요일 오후 두 시가 막 지났을 때 예수께서는, 열한 사도, **아리마대 요셉**, 30명의 **그리스인**, 그리고 어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도착했으며, 신성시되는 건물의 뜰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이 강론은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맹렬하게 대적하는 자들과, 아마 그를 죽이려는 자들--곧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및 **이스라엘**의 최고 관리들--에 대한 마지막 고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전 내내 여러 집단이 예수께 연달아 질문했지만; 오후가 된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성전 뜰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환전가와 상인은 그 전날 **예수**와 분개한 대중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고집불통의 **유대인** 관리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 함께, 인류를 향한 자비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 작별 연설을 이제 곧 듣게 될, 이 청중을 부드럽게 내려다봤다.

1. 강론

INTRODUCTION

175:0.1 (1905.1) SHORTLY after two o'clock on this Tuesday afternoon, Jesus, accompanied by eleven apostles, Joseph of Arimathea, the thirty Greeks, and certain other disciples, arrived at the temple and began the delivery of his last address in the courts of the sacred edifice. This discourse was intended to be his last appeal to the Jewish people and the final indictment of his vehement enemies and would-be destroyers — the scribes, Pharisees, Sadducees, and the chief rulers of Israel. Throughout the forenoon the various groups had had an opportunity to question Jesus; this afternoon no one asked him a question.

175:0.2 (1905.2) As the Master began to speak, the temple court was quiet and orderly. The money-changers and the merchandisers had not dared again to enter the temple since Jesus and the aroused multitude had driven them out the previous day. Before beginning the discourse, Jesus tenderly looked down upon this audience which was so soon to hear his farewell public address of mercy to mankind coupled with his last denunciation of the false teachers and the bigoted rulers of the Jews.

1. THE DISCOURSE

“나는,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면서, 땅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은 빛을 보고 신앙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 이 가르침 및 전도와 관련하여, **아버지**께서는 놀랄만한 일을 많이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다. 병들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됐으나; 진리를 선포하고 병을 치유한 이 모든 것으로도,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다.

“나와 사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 **아버지**의 뜻을 시종일관 행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형제들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오류와 무지의 편에 스스로 줄을 섰다. 빛과 어둠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다수는 내 교훈을 기꺼이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의식하는 자유와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전체 **유대** 민족, 심지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시했던 나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 눈 먼 선생들과 위선적인 이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신다.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지금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자비로 대하셨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했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완고한 대제사장들과 고집스런 관리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유대인**이 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추구할 기회가 있는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자비의 손을 뻗치고 계시겠지만; 너희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잔이 일단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자비를 일단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스스로 심판받아서, 속히 불명예스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갖는 영적 영광을 나타내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너희는 신성한 특권을 실현함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너희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175:1.1 (1905.3) “This long time have I been with you, going up and down in the land proclaiming the Father’s love for the children of men, and many have seen the light and, by faith, have entered into the kingdom of heaven. In connection with this teaching and preaching the Father has done many wonderful works, even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Many sick and afflicted have been made whole because they believed; but all of this proclamation of truth and healing of disease has not opened the eyes of those who refuse to see light, those who are determined to reject this gospel of the kingdom.

175:1.2 (1905.4)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doing my Father’s will, I and my apostles have done our utmost to live in peace with our brethren, to conform with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laws of Moses and the traditions of Israel. We have persistently sought peace, but the leaders of Israel will not have it. By rejecting the truth of God and the light of heaven, they are aligning themselves on the side of error and darkness. There cannot be peace between light and darkness, between life and death, between truth and error.

175:1.3 (1905.5) “Many of you have dared to believe my teachings and have already entered into the joy and liberty of the consciousness of sonship with God. And you will bear me witness that I have offered this same sonship with God to all the Jewish nation, even to these very men who now seek my destruction. And even now would my Father receive these blinded teachers and these hypocritical leaders if they would only turn to him and accept his mercy. Even now it is not too late for this people to receive the word of heaven and to welcome the Son of Man.

175:1.4 (1906.1) “My Father has long dealt in mercy with this peopl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ve we sent our prophets to teach and warn them, an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ve they killed these heaven-sent teachers. And now do your willful high priests and stubborn rulers go right on doing this same thing. As Herod brought about the death of John, you likewise now make ready to destroy the Son of Man.

175:1.5 (1906.2) “As long as there is a chance that the Jews will turn to my Father and seek salvation,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will keep his hands of mercy outstretched toward you; but when you have once filled up your cup of impenitence, and when once you have finally rejected my Father’s mercy, this nation will be left to its own counsels, and it shall speedily come to an inglorious end. This people was called to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to show forth the spiritual glory of a God-knowing race, but you have so far departed from the fulfillment of your divine privileges that your leaders are about to commit

사랑하신다는 계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기 직전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일단 거부하고 나면, 하늘 나라는, 다른 민족들, 즉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가졌던 영원한 진리의 기수(旗手)와, 거룩한 율법 수호자로서의 너희의 위치를 잃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처럼 진실된 신앙으로, 하늘 나라의 구원과 보증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너희의 의향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오셨으며, 내가 이곳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몸소 보여줬다. 많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천국 복음을 믿었지만, 먼저 앞으로 나아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곧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드러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림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완강히 거절해 왔다.

“너희 앞에 서있는 내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는 침묵하지만,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살아가게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늘 나라에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그들의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너희가 곧 듣게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자(使者)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을 증언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진리의 사자들이 어떻게 거부되는지, 너희 모두가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을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릴 **지고자**가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관리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동하라고 명한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너희가 단결할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율법의 본질 요소들을 잘 준수하되, 그들의 악한 소행은 본받지 말라. 이 관리들의 다음과 같은 죄를 꼭 기억해라: 그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자신은 행치 않는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그 짐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너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는지, 너희가 잘 안다. 그들은 종교 예식으로 너희를 압제하고, 전통으로 너희를 노예 삼는다.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이 관리들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이마와 팔목에 붙이는 성구함(聖句函)을 더 잘 보

the supreme folly of all the ages in that they are on the verge of finally rejecting the gift of God to all men and for all ages — the revelation of the love of the Father in heaven for all his creatures on earth.

175:1.6 (1906.3) “And when you do once reject this revelation of God to ma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given to other peoples, to those who will receive it with joy and gladness. In the name of the Father who sent me, I solemnly warn you that you are about to lose your position in the world as the standard-bearers of eternal truth and the custodians of the divine law. I am just now offering you your last chance to come forward and repent, to signify your intention to seek God with all your hearts and to enter, like little children and by sincere faith, into the security and salv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175:1.7 (1906.4) “My Father has long worked for your salvation, and I came down to live among you and personally show you the way. Many of both the Jews and the Samaritans, and even the gentiles, have believed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those who should be first to come forward and accept the light of heaven have steadfastly refused to believe the revelation of the truth of God — God revealed in man and man uplifted to God.

175:1.8 (1906.5) “This afternoon my apostles stand here before you in silence, but you shall soon hear their voices ringing out with the call to salvation and with the urge to unite with the heavenly kingdom as the sons of the living God. And now I call to witness these, my disciples and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well as the unseen messengers by their sides, that I have once more offered Israel and her rulers deliverance and salvation. But you all behold how the Father’s mercy is slighted and how the messengers of truth are rejected. Nevertheless, I admonish you that these scribes and Pharisees still sit in Moses’ seat, and therefore, until the Most Highs who rule in the kingdoms of men shall finally overthrow this nation and destroy the place of these rulers, I bid you co-operate with these elders in Israel. You are not required to unite with them in their plans to destroy the Son of Man, but in everything related to the peace of Israel you are to be subject to them. In all these matters do whatsoever they bid you and observe the essentials of the law but do not pattern after their evil works. Remember, this is the sin of these rulers: They say that which is good, but they do it not. You well know how these leaders bind heavy burdens on your shoulders, burdens grievous to bear, and that they will not lift as much as one finger to help you bear these weighty burdens. They have oppressed you with ceremonies and enslaved you by traditions.

175:1.9 (1907.1) “Furthermore, these self-centered rulers delight in doing their good works so that they will be seen by men. They make broad their

이게 만들었고, 관복의 장식을 더 크게 했다. 축제 때 상석(上席)을 원했고, 회당에서는 주빈석을 요구했다. 시장바닥에서 찬미의 인사말을 나누고자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싶어 했다.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모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비밀리에 장악하고, 신성시되는 성전의 예배에서 이익을 챙겼다. 이 위선자들은 걸치레로 공중 기도를 길게 했고, 동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다.

“너희의 관리를 존경하고 너희의 선생을 경외하되,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어느 누구도 영적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또한 천국 안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내가 가르쳤음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으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분명히 높임 받을 것이다. 너희 일상생활에서 자기 영광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너희 자신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충명하게 굴복시켜라.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내 교훈을 거절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 가운데 다수가 비밀리에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며, 내 때가 오면 너희가 천국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랍비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온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하니,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하겠느냐?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의 가르침을 우연히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희는 진실된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의 문들을 닫아버리려고 한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다.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문들 앞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과 다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지니,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한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성공하게 되면, 그가 이방 자녀로 있었을 때보다 배나 더 나쁘게 만들고 나서야 만족한다.

“**모세**가 제정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과중한 의무금을 요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너희 제사장과 관리에게 화 있으라!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너희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자비를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 거짓 선생들, 눈 먼 인도자들에게 화 있으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한 나라가 어떻게

phylacteries and enlarge the borders of their official robes. They crave the chief places at the feasts and demand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They covet laudatory salutations in the market places and desire to be called rabbi by all men. And even while they seek all this honor from men, they secretly lay hold of widows' houses and take profit from the services of the sacred temple. For a pretense these hypocrites make long prayers in public and give alms to attract the notice of their fellows.

175:1.10 (1907.2) “While you should honor your rulers and reverence your teachers, you should call no man Father in the spiritual sense, for there is one who is your Father, even God. Neither should you seek to lord it over your brethren in the kingdom. Remember, I have taught you that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come the server of all. If you presume to exalt yourselves before God, you will certainly be humbled; but whoso truly humbles himself will surely be exalted. Seek in your daily lives, not self-glorification, but the glory of God. Intelligently subordinate your own wills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75:1.11 (1907.3) “Mistake not my words. I bear no malice toward these chief priests and rulers who even now seek my destruction; I have no ill will for these scribes and Pharisees who reject my teachings. I know that many of you believe in secret, and I know you will openly profess your allegiance to the kingdom when my hour comes. But how will your rabbis justify themselves since they profess to talk with God and then presume to reject and destroy him who comes to reveal the Father to the worlds?

175:1.12 (1907.4)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You would shut the doors of the kingdom of heaven against sincere men because they happen to be unlearned in the ways of your teaching. You refuse to enter the kingdom and at the same time do everything within your power to prevent all others from entering. You stand with your backs to the doors of salvation and fight with all who would enter therein.

175:1.13 (1907.5)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that you are! for you do indeed encompass land and sea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you have succeeded, you are not content until you have made him twofold worse than he was as a child of the heathen.

175:1.14 (1907.6) “Woe upon you, chief priests and rulers who lay hold of the property of the poor and demand heavy dues of those who would serve God as they think Moses ordained! You who refuse to show mercy, can you hope for mercy in the worlds to come?

175:1.15 (1907.7) “Woe upon you, false teachers, blind guides! What can be expected of a nation when

되겠느냐? 그들은 둘 다 멸망의 구렁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거짓으로 서원하는 너희에게 화 있으라! 성전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서약을 깰 수 있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서원한 자는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니, 너희는 사기꾼이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일관되지 못하니,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성전이 더 크냐? 또한 너희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제단으로 서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에 바친 제물로 서원하면 값야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진리를 보고도 못 본 채하는 자들이니, 제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그런 위선과 거짓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확실하게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한 문제들--곧 신앙, 자비, 및 심판--은 무시하는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모든 위선자들에게 화 있으라! 너희가 전자{前者}의 것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後者}의 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눈 먼 인도자이고 병어리 선생들이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잔과 접시의 겉은 철저히 닦으면서, 그 속에는 강탈{强奪}, 난폭, 및 속임수로 여전히 가득 차 있으니,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화 있으라! 너희는 영적{靈的}으로 눈 먼 자들이다. 잔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넘쳐흐르는 것으로 그 밖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사악한 타락자들아!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해석하여 그 글자대로 따르려고, 너희의 종교를 표면적으로 연출하면서, 너희의 혼은 죄악에 젖어있고 살의{殺意}로 가득 차 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자비를 거절하는 너희 모두에게 화 있으라!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은, 밝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의 권고를 알면서 거절하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듯이 보일지라도, 마음 속은 외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민족을 잘못 인도하는 너희에게 화 있으라! 너희는 순교당한 옛 선지자들의 유적을 저곳에 세워놓고, 그들이 전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를, 즉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한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니,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사악한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너희의 비난의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라!

the blind lead the blind? They both shall stumble into the pit of destruction.

175:1.16 (1907.8) “Woe upon you who dissimulate when you take an oath! You are tricksters since you teach that a man may swear by the temple and break his oath, but that whoso swears by the gold in the temple must remain bound. You are all fools and blind. You are not even consistent in your dishonesty, for which is the greater, the gold or the temple which has supposedly sanctified the gold? You also teach that, if a man swears by the altar, it is nothing; but that, if one swears by the gift that is upon the altar, then shall he be held as a debtor. Again are you blind to the truth, for which is the greater, the gift or the altar which sanctifies the gift? How can you justify such hypocrisy and dishonesty in the sight of the God of heaven?

175:1.17 (1908.1)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and all other hypocrites who make sure that they tithe mint, anise, and cummin and at the same time disregard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 faith, mercy, and judgment! Within reason, the one you ought to have done but not to have left the other undone. You are truly blind guides and dumb teachers; you strain out the gnat and swallow the camel.

175:1.18 (1908.2) “Woe upon you, scribes, Pharisees, and hypocrites! for you are scrupulous to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the platter, but within there remains the filth of extortion, excesses, and deception. You are spiritually blind. Do you not recognize how much better it would be first to cleanse the inside of the cup, and then that which spills over would of itself cleanse the outside? You wicked reprobates! you make the outward performances of your religion to conform with the letter of your interpretation of Moses' law while your souls are steeped in iniquity and filled with murder.

175:1.19 (1908.3) “Woe upon all of you who reject truth and spurn mercy! Many of you are like whited sepulchres, which outwardly appear beautiful but within are full of dead men's bones and all sorts of uncleanness. Even so do you who knowingly reject the counsel of God appear outwardly to men as holy and righteous, but inwardly your hearts are filled with hypocrisy and iniquity.

175:1.20 (1908.4) “Woe upon you, false guides of a nation! Over yonder have you built a monument to the martyred prophets of old, while you plot to destroy Him of whom they spoke. You garnish the tombs of the righteous and flatter yourselves that, had you lived in the days of your fathers, you would not have killed the prophets; and then in the face of such self-righteous thinking you make ready to slay him of whom the prophets spoke, the Son of Man. Inasmuch as you do these things, are you witness to yourselves that you are the wicked sons of them who slew the prophets. Go on, then,

“악의 자녀인 너희에게 화 있으라! **요한**은 정말로 너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으며, 너희에게 묻겠는데, **요한**이 너희에게 선포한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와 용서를 제안하며; 지금도 영원한 친구라는 애정 어린 손을 내밀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현명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더러는 박해하고 더러는 죽였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의 도래를 공표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믿은 후에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할 준비를 한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 하늘에서 온 이 사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민족에게 요구할, 무시무시한 응징의 날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처음 죽음 당한 선지자로부터, 지성소와 번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스가랴**의 시절까지, 이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해 너희가 책임 져야만 함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한 길로 계속 간다면, 바로 이 세대에게 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오!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너희에게 보낸 선생들을 죽인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아,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지금도 모으고자 하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들었고 너희의 결정을 내렸다. 내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나를, 너희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내 업무는 끝났다. 보라, 내가 이제 내 자녀들과 함께 가지만,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너희에게 맡겨지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추종자들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손짓했다.

and fill up the cup of your condemnation to the full!

175:1.21 (1908.5) “Woe upon you, children of evil! John did truly call you the offspring of vipers, and I ask how can you escape the judgment that John pronounced upon you?

175:1.22 (1908.6) “But even now I offer you in my Father’s name mercy and forgiveness; even now I proffer the loving hand of eternal fellowship. My Father has sent you the wise men and the prophets; some you have persecuted and others you have killed. Then appeared John proclaiming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and him you destroyed after many had believed his teaching. And now you make ready to shed more innocent blood. Do you not comprehend that a terrible day of reckoning will come when the Judge of all the earth shall require of this people an accounting for the way they have rejected, persecuted, and destroyed these messengers of heaven? Do you not understand that you must account for all of this righteous blood, from the first prophet killed down to the times of Zechariah, who was slain between the sanctuary and the altar? And if you go on in your evil ways, this accounting may be required of this very generation.

175:1.23 (1908.7) “O Jerusalem and the children of Abraham, you who have stoned the prophets and killed the teachers that were sent to you, even now would I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ens under her wings, but you will not!

175:1.24 (1908.8) “And now I take leave of you. You have heard my message and have made your decision. Those who have believed my gospel are even now safe within the kingdom of God. To you who have chosen to reject the gift of God, I say that you will no more see me teaching in the temple. My work for you is done. Behold, I now go forth with my children, and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175:1.25 (1908.9) And then the Master beckoned his followers to depart from the temple.

2. 유대인 각자의 신분

유대 국가의 영적 지도자들과 종교 교사들이, **예수**의 교훈을 한때 거절하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유대인** 각자의 신분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동료 필사자로서 **유대인**을 적대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민족으로서, 즉 하나의 정치적 사회 집단으로서, **유대인**은 **평화의 왕자**를 거절한데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들은 인류의 종족들에게 신성한 진리라는 영적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포기한지

2. STATUS OF INDIVIDUAL JEWS

175:2.1 (1909.1) The fact that the spiritual leaders and the religious teachers of the Jewish nation onetime rejected the teachings of Jesus and conspired to bring about his cruel death, does not in any manner affect the status of any individual Jew in his standing before God. And it should not cause those who profess to be followers of the Christ to be prejudiced against the Jew as a fellow mortal. The Jews, as a nation, as a sociopolitical group, paid in full the terrible price of rejecting the Prince of Peace. Long since they ceased to be the spiritual torchbearers of divine truth to the races of

오래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옛 **유대인**의 후손 하나하나가,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편협하고 비열하며 완악한 추종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 바로 이 **예수**는 출생신분으로 볼 때 **유대인**이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그리스도**답지 않게 현대 **유대인**들을 이처럼 증오하고 박해함으로써, 결백하고 예의바른 어떤 개별 **유대인**의 수난과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들의 바로 그 조상은, **예수**의 시절에 그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토록 진심으로 믿었던 그 진리를 위해, 마침내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베드로**, **빌립**, **마태**, 그리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포기한 다른 **팔레스틴 유대인**의 후대 자손을, 자칭 **예수** 추종자들이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에 빠지는 것을 바라볼 때, 지켜보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몹서리치는 참극들이 지나갔는지!

순결한 자녀들이, 선조의 죄, 즉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악행 때문에, 수난 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의 이름으로, 그런 사악한 행위들이 벌어지다니!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려할 때, 어떤 동료 **유대인**이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수치스런 죽음을 안겨주려고 음모를 꾸민 그 태도를 부득이 묘사하게 됐지만;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고하려는 것은, 그런 역사적 설명이, 그토록 많은 자칭 **그리스도교인**이 수세기 동안 **유대인** 개인들을 향해 가졌던 불의한 증오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불공정한 태도를 용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천국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 개인을 대할 때,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인으로 취급하기를 멈춰야 한다.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은 **유대인**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mankind, but this constitutes no valid reason why the individual descendants of these long-ago Jews should be made to suffer the persecutions which have been visited upon them by intolerant, unworthy, and bigoted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of Nazareth, who was, himself, a Jew by natural birth.

175:2.2 (1909.2) Many times has this unreasoning and un-Christlike hatred and persecution of modern Jews terminated in the suffering and death of some innocent and unoffending Jewish individual whose very ancestors, in the times of Jesus, heartily accepted his gospel and presently died unflinchingly for that truth which they so wholeheartedly believed. What a shudder of horror passes over the onlooking celestial beings as they behold the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indulge themselves in persecuting, harassing, and even murdering the later-day descendants of Peter, Philip, Matthew, and others of the Palestinian Jews who so gloriously yielded up their lives as the first martyrs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175:2.3 (1909.3) How cruel and unreasoning to compel innocent children to suffer for the sins of their progenitors, misdeeds of which they are wholly ignorant, and for which they could in no way be responsible! And to do such wicked deeds in the name of one who taught his disciples to love even their enemies! It has become necessary, in this recital of the life of Jesus, to portray the manner in which certain of his fellow Jews rejected him and conspired to bring about his ignominious death; but we would warn all who read this narrative that the presentation of such a historical recital in no way justifies the unjust hatred, nor condones the unfair attitude of mind, which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have maintained toward individual Jews for many centuries. Kingdom believers, those who follow the teachings of Jesus, must cease to mistreat the individual Jew as one who is guilty of the rejection and crucifixion of Jesus. The Father and his Creator Son have never ceased to love the Jew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salvation is for the Jew as well as for the gentile.

3.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이 화요일 저녁 여덟 시에,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됐다. **유대** 민족의 이 최고 법정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것을, 앞선 여러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다. 위엄 있는 이 통치기관은, 그의 일을 멈추게 하기로 여러 번에 걸쳐 결정하기는 했지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체포해서 죽이기로 포결한 적은 없었다. 당시에 선출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와 **나사로** 둘 다에게 사형을 언도하기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가결 투표한 것은, 서기 30년 4월 4일 화요일 자정이 막 돼가는 무렵이었다. 이것이, 불과 몇 시간 전

3. THE FATEFUL SANHEDRIN MEETING

175:3.1 (1909.4) At eight o'clock on this Tuesday evening the fateful meeting of the Sanhedrin was called to order. On many previous occasions had this supreme court of the Jewish nation informally decreed the death of Jesus. Many times had this august ruling body determined to put a stop to his work, but never before had they resolved to place him under arrest and to bring about his death at any and all costs. It was just before midnight on this Tuesday, April 4, A.D. 30, that the Sanhedrin, as then constituted, officially and *unanimously*

에 성전에서 있었던, **유대인** 관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답이었으며,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완고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의 최종적이고 강력한 고발을 향해, 그들의 냉혹한 분노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재판하기도 전에) 내려진 사형선고는, **유대** 민족에게도 언제나 그런 입장에서 퍼져갈 수 있었던 하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산헤드린**의 반응이었다.

유대인은 이때부터, **유란시아** 여러 민족 중에서 전적으로 순전히 그들의 인간 상태에 따라서만, 덧없고 짧은 민족의 생존 기간을 마치도록 위임됐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에 흩어지게 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려던 계획을 거부했다. 신성한 계약은 폐기됐고, **히브리** 민족의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헤드린** 관원들은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를 공공연히 붙잡지 말라는 지시가 첨부됐다. 그들은 비밀리에, 되도록 밤에 잡자기, 그를 체포하도록 계획하라고 지시받았다. 그들은 그날(곧 수요일)에는 그가 가르치려 성전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목요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의 최고 법정 앞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이 **산헤드린** 관원들에게 지시했다.

4. 예루살렘의 정세

사도들은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론의 결론 부분에, 다시 한 번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 **주님**이 **유대인** 관리들에 대해 무시무시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도 성전으로 돌아왔으며, 그리하여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론의 후반부를, 열두 사도 전체가 듣게 됐다. 작별을 고하는 이 연설에서, 자비를 제시하는 처음 절반 부분을 **가롯 유다**가 듣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유대인** 관리들에게 제시한 이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어떤 **사두개인** 친척 및 친구들 무리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직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가 복음 운동을 저버리고 모든 계획에서 손을 떼기로 최종으로 완전하게 결심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와 관리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발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열두 사도와 함께 성전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고, 거기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유대** 민족의 종말에 관한 결정적인 그 강론을 들었으며, 같은 화요일 밤에는 **갯세마네** 근처에 있는 새 야영지에 그들과 함께 남아있었다.

voted to impose the death sentence upon both Jesus and Lazarus. This was the answer to the Master's last appeal to the rulers of the Jews which he had made in the temple only a few hours before, and it represented their reaction of bitter resentment toward Jesus' last and vigorous indictment of these same chief priests and impenitent Sadducees and Pharisees. The passing of death sentence (even before his trial) upon the Son of God was the Sanhedrin's reply to the last offer of heavenly mercy ever to be extended to the Jewish nation, as such.

175:3.2 (1910.1) From this time on the Jews were left to finish their brief and short lease of national life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ir purely human status among the nations of Urantia. Israel had repudiated the Son of the God who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nd the plan to make the children of Abraham the light-bearers of truth to the world had been shattered. The divine covenant had been abrogated, and the end of the Hebrew nation drew on apace.

175:3.3 (1910.2)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were given the orders for Jesus' arrest early the next morning, but with instructions that he must not be apprehended in public. They were told to plan to take him in secret, preferably suddenly and at night. Understanding that he might not return that day (Wednesday) to teach in the temple, they instructed these officers of the Sanhedrin to "bring him before the high Jewish court sometime before midnight on Thursday."

4. THE SITUATION IN JERUSALEM

175:4.1 (1910.3) At the conclusion of Jesus' last discourse in the temple, the apostles once more were left in confusion and consternation. Before the Master began his terrible denunciation of the Jewish rulers, Judas had returned to the temple, so that all twelve heard this latter half of Jesus' last discourse in the temple. It is unfortunate that Judas Iscariot could not have heard the first and mercy-proffering half of this farewell address. He did not hear this last offer of mercy to the Jewish rulers because he was still in conference with a certain group of Sadducean relatives and friends with whom he had lunched, and with whom he was conferring as to the most fitting manner of dissociating himself from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It was while listening to the Master's final indictment of the Jewish leaders and rulers that Judas finally and fully made up his mind to forsake the gospel movement and wash his hands of the whole enterprise. Nevertheless, he left the temple in company with the twelve, went with them to Mount Olivet, where, with his fellow apostles, he listened to that fateful discourse o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end of the Jewish nation,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자비롭게 호소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차 없이 심하게 경고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통렬하게 꾸짖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대중은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날 밤에, **산헤드린**이 **예수**께 사형을 언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사도들 및 어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서 **유대** 국가의 멸망을 예고하는 동안, 온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심각하고 은밀한 토론에 몰두했다.

몰래 천국을 믿는 30명 이상의 저명한 **유대인**이 **니고데모**의 집에 모여서, **산헤드린**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게 될 때 자신들이 어떤 진로를 추구할 것인지 논의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히 표명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제 **산헤드린**을 통제하고 우위를 지배하게 된 **사두개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몹시 없애버리고 싶어 했다:

1. 그들은, 그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이 점점 더 일반적인 호의로 자라감으로써 **로마** 권세자들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서, **유대** 민족이 존재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2. 성전 개혁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들의 수입에 직접 타격을 입혔으며; 성전 청소가 그들의 금고에 악 영향을 끼쳤다.

3. 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느꼈으므로, 사람이 서로 형제관계를 이룬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예수**의 교리가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바리새인은 다른 동기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들이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1. 그가,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지배권에 대항하는 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바리새인**은 극단적 보수파였으며, 종교 교사로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해 과격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몹시 분개했다.

2.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했으며;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율법 및 예식(禮式)의 요구사항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3.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죄를 선고했다.

4. 그리고 이제 그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데, 이날 그가 성전에서 마지막 작별 연설 가

and remained with them that Tuesday night at the new camp near Gethsemane.

175:4.2 (1910.4) The multitude who heard Jesus swing from his merciful appeal to the Jewish leaders into that sudden and scathing rebuke which bordered on ruthless denunciation, were stunned and bewildered. That night, while the Sanhedrin sat in death judgment upon Jesus, and while the Master sat with his apostles and certain of his disciples out on the Mount of Olives foretelling the death of the Jewish nation, all Jerusalem was given over to the serious and suppressed discussion of just one question: “What will they do with Jesus?”

175:4.3 (1910.5) At the home of Nicodemus more than thirty prominent Jews who were secret believers in the kingdom met and debated what course they would pursue in case an open break with the Sanhedrin should come. All present agreed that they would make open acknowledgment of their allegiance to the Master in the very hour they should hear of his arrest. And that is just what they did.

175:4.4 (1911.1) The Sadducees, who now controlled and dominated the Sanhedrin, were desirous of making away with Jesus for the following reasons:

175:4.5 (1911.2) 1. They feared that the increased popular favor with which the multitude regarded him threatened to endanger the existence of the Jewish nation by possible involvement with the Roman authorities.

175:4.6 (1911.3) 2. His zeal for temple reform struck directly at their revenues; the cleansing of the temple affected their pocketbooks.

175:4.7 (1911.4) 3. They felt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and they feared the consequences of the further spread of Jesus' strange and new doctrine of the brotherhood of man.

175:4.8 (1911.5) The Pharisees had different motives for wanting to see Jesus put to death. They feared him because:

175:4.9 (1911.6) 1. He was arrayed in telling opposition to their traditional hold upon the people. The Pharisees were ultraconservative, and they bitterly resented these supposedly radical attacks upon their vested prestige as religious teachers.

175:4.10 (1911.7) 2. They held that Jesus was a lawbreaker; that he had shown utter disregard for the Sabbath and numerous other legal and ceremonial requirements.

175:4.11 (1911.8) 3. They charged him with blasphemy because he alluded to God as his Father.

175:4.12 (1911.9) 4. And now were they thoroughly angry with him because of his last discourse of

운데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제시했던, 신랄하게 비난하는 강론 때문이었다.

산헤드린은, **예수**의 사형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므로, **예수**께서 재판 받아야 할 죄의 목록을 공식화{公式化}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날 아침 열 시에 대제사장 **가아바**의 집에서 모일 것을 약속한 뒤에, 이 화요일 자정 무렵에 해산했다.

소수의 **사두개인** 무리가 **예수**를 암살하여 처치하자고 제안했음이 사실이지만, **바리새인**은 그런 방법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이것이, 파란 많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진 상황이었으며, 방대하게 집합한 천상의 존재들이 땅에서 이 중대한 장면 주변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권자**를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감독관들이 효과적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bitter denunciation which he had this day delivered in the temple as the concluding portion of his farewell address.

175:4.13 (1911.10) The Sanhedrin, having formally decreed the death of Jesus and having issued orders for his arrest, adjourned on this Tuesday near midnight, after appointing to meet at ten o'clock the next morning at the hom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the charges on which Jesus should be brought to trial.

175:4.14 (1911.11) A small group of the Sadducees had actually proposed to dispose of Jesus by assassination, but the Pharisees utterly refused to countenance such a procedure.

175:4.15 (1911.12) And this was the situation in Jerusalem and among men on this eventful day while a vast concourse of celestial beings hovered over this momentous scene on earth, anxious to do something to assist their beloved Sovereign but powerless to act because they were effectively restrained by their commanding superiors.

제176편.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 175

유랜시아 책

177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76편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색션

소개

1. 예루살렘의 멸망
2. 주님의 재림
3. 야영지에서 이어진 토론
4. 미가엘의 재림

PAPER 176

TUESDAY EVENING ON MOUNT OLIVE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2. The Master's Second Coming
3. Later Discussion at the Camp
4. The Return of Michael

소개

이 화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겟세마네** 야영지로 가는 도중에, **마태**가 성전 건축물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했다: “**주님**,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 거대한 돌과 아름다운 장식을 보니; 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감람산**을 향해 나갈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이 돌과 거대한 성전을 보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저들이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신성시되는 성전의 파괴를 뜻하는 이런 말씀이, **주님**을 뒤따라 걸어오는 사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인파를 피하기 위해 **기드론** 계곡을 따라 **겟세마네**로 가면서, **예수**와 동역자들은 가까운 길로 가기 위해 **감람산** 서쪽 능선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으므로, 공공 야영장 위로 조금 떨어진, **겟세마네** 근처에 설치된 그들의 사설 야영지를 향해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그들은 **베다니**로 가는 길을 벗어나면서, 석양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을 바라봤으며; 산에 머무는 동안, 성에서 비치는 빛을 봤고, 등불을 밝힌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

INTRODUCTION

176:0.1 (1912.1) THIS Tuesday afternoon, as Jesus and the apostles passed out of the temple on their way to the Gethsemane camp, Matthew, calling attention to the temple construction, said: “Master, observe what manner of buildings these are. See the massive stones and the beautiful adornment; can it be that these buildings are to be destroyed?” As they went on toward Olivet, Jesus said: “You see these stones and this massive temple; verily, verily, I say to you: In the days soon to come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They shall all be thrown down.” These remarks depicting the destruction of the sacred temple aroused the curiosity of the apostles as they walked along behind the Master; they could conceive of no event short of the end of the world which would occasion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176:0.2 (1912.2) In order to avoid the crowds passing along the Kidron valley toward Gethsemane, Jesus and his associates were minded to climb up the western slope of Olivet for a short distance and then follow a trail over to their private camp near Gethsemane located a short distance above the public camping ground. As they turned to leave the road leading on to Bethany, they observed the temple, glorified by the rays of the setting sun; and while they tarried on the mount, they saw the lights

라봤으며; 예수와 열두 사도는 부드러운 보름달빛 아래 앉았다. 주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욱고 나다니엘이 질문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 예루살렘의 멸망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 민족이 자신의 죄악의 잔을 언제 가득 채우게 되는지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때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이 성{城}에 재판이 속임하는 날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구원자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근과 지진 때문에 동요하지 말며; 너희가 세속 권세자들에게 넘겨지거나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고, 나로 인해 감옥에 갇히겠으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통치자와 관리들 앞에 끌려갈 때, 그것은 너희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한 것이고, 천국 복음에 대해 너희가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에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의 날에는, 사람의 아들을 거절했던 그들의 지배 아래서, 너희의 친척이라도 너희를 감옥에 넘겨서 죽이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너희가 얼마 동안 미움을 받겠지만, 이런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영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결국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리라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께서 잠시 멈추고 성을 내려다봤다. 메시아의 영적 개념에 대한 거부, 즉 기대하던 구원자의 물질적 역할에 맹목적으로 계속 매달리려는 경향이, 이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강력한 로마 군대와 직접적인 갈등을 곧 야기하게 될 것이며, 그런 싸움은 마침내 유대 민족의 완전한 마지막 멸망을 가져올 뿐임을, 주님은 분명히 인식했다. 그의 민족이 그의 영적 증여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비롭게 그들에게 내려 쬔 하늘의 빛 받기를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가진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하게 됐다.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도, 소란의 직접 원인이 되고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한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세속적 관념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of the city appear and beheld the beauty of the illuminated temple; and there, under the mellow light of the full moon, Jesus and the twelve sat down. The Master talked with them, and presently Nathaniel asked this question: “Tell us, Master, how shall we know when these events are about to come to pass?”

1.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176:1.1 (1912:3) In answering Nathaniel's question, Jesus said: “Yes, I will tell you about the times when this people shall have filled up the cup of their iniquity; when justice shall swiftly descend upon this city of our fathers. I am about to leave you; I go to the Father. After I leave you,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for many will come as deliverers and will lead many astray.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e not troubled, for though all these things will happen, the end of Jerusalem is not yet at hand. You should not be perturbed by famines or earthquakes; neither should you be concerned when you are delivered up to the civil authorities and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the gospel. You will be thrown out of the synagogue and put in prison for my sake, and some of you will be killed. When you are brought up before governors and rulers, it shall be for a testimony of your faith and to show your steadfastnes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hen you stand before judges, be not anxious beforehand as to what you should say, for the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should answer your adversaries. In these days of travail, even your own kinsfolk, under the leadership of those who have rejected the Son of Man, will deliver you up to prison and death. For a time you may be hated by all men for my sake, but even in these persecutions I will not forsake you; my spirit will not desert you. Be patient! doubt not that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triumph over all enemies and, eventually, be proclaimed to all nations.”

176:1.2 (1913:1) Jesus paused while he looked down upon the city. The Master realized that the rejection of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Messiah, the determination to cling persistently and blindly to the material mission of the expected deliverer, would presently bring the Jew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powerful Roman armies, and that such a contest could only result in the final and complete overthrow of the Jewish nation. When his people rejected his spiritual bestowal and refused to receive the light of heaven as it so mercifully shone upon them, they thereby sealed their doom as an independent people with a special spiritual mission on earth. Even the Jewish leaders subsequently recognized that it was this secular idea of the Messiah which directly led to the turbulence which eventually brought about their

예루살렘이 초기 복음 운동의 요람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그것을 이끌 선생과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된 **유대** 민족의 무시무시한 멸망 속에서 죽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치 않았으며; 그리하여 추종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곧 다가올 반란에 가담하여 **예루살렘**의 파멸 속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무척 염려했다.

그때 **안드레**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거룩한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여기 없어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떠난 후에, 힘들고 쓰라린 박해 때까지도 너희는 그 성에 머물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반란이 있는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임박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니;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아무도 성(城)안에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건져내려고 그 주변에 머물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도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방인의 복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을 떠난 후에, 순종치 않는 이 민족은 무력으로 함락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힐 것이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그러는 동안 너희는 속지 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보라, **구원주**가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많은 거짓 교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졌으니, 너희는 속지 않아야 한다.”

몹시 놀라게 하는 **주님**의 이 예견이, 어리둥절한 사도들의 정신 속에 스며드는 동안, 그들은 달빛 아래 한참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신자 및 제자 전체 무리는 바로 이런 경고(警告)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고, 북쪽에 있는 **펠라**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

심지어 이런 명백한 경고가 있는 후에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이 예견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날 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의미하며, 그 성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기 위해 확장되는 명백한 결과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런 **유대인**은,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다고, 마음 속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포함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세상의 종말이 있는 후에, 즉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destruction.

176:1.3 (1913.2) Since Jerusalem was to become the cradle of the early gospel movement, Jesus did not want its teachers and preachers to perish in the terrible overthrow of the Jewish people in connection with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herefore did he give these instructions to his followers. Jesus was much concerned lest some of his disciples become involved in these soon-coming revolts and so perish in the downfall of Jerusalem.

176:1.4 (1913.3) Then Andrew inquired: “But, Master, if the Holy City and the temple are to be destroyed, and if you are not here to direct us, when should we forsake Jerusalem?” Said Jesus: “You may remain in the city after I have gone, even through these times of travail and bitter persecution, but when you finally see Jerusalem being encompassed by the Roman armies after the revolt of the false prophets, then will you know that her desolation is at hand; then must you flee to the mountains. Let none who are in the city and around about tarry to save aught, neither let those who are outside dare to enter therei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for these will be the days of gentile vengeance. And after you have deserted the city, this disobedient people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will be led captive into all nations; and so shall Jerusalem be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In the meantime, I warn you, be not deceived. If any man comes to you, saying, ‘Behold, here is the Deliverer,’ or ‘Behold, there is he,’ believe it not, for many false teachers will arise and many will be led astray; but you should not be deceived, for I have told you all this beforehand.”

176:1.5 (1913.4) The apostles sat in silence in the moonlight for a considerable time while these astounding predictions of the Master sank into their bewildered minds. And it was in conformity with this very warning that practically the entire group of believers and disciples fled from Jerusalem upon the first appearance of the Roman troops, finding a safe shelter in Pella to the north.

176:1.6 (1913.5) Even after this explicit warning, many of Jesus’ followers interpreted these predictions as referring to the changes which would obviously occur in Jerusalem when the reappearing of the Messiah would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Jerusalem and in the enlargement of the city to become the world’s capital. In their minds these Jews were determined to connect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with the “end of the world.” They believed this New Jerusalem would fill all Palestine; that the end of the world would be followed by the immediate appearance of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nd so it was not strange that Peter should say: “Master, we know that all things will pass away when the new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씀했다: “너는 늘 새로운 가르침을 옛 것에 첨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며; 내 가르침을 전부 오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확립된 네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기를 고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주님의 재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곧 떠나기로 하면서, 하늘 나라의 업무를 완성이 위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청중들이 추측하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그가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확신이 추종자들에게 점차 증대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약속에, 모든 신자가 즉시 매달리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그리스도교** 교훈에 일찍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거의 모든 세대의 제자들이 이 진리를 진실하게 믿었고, 그의 재림(再臨)의 때를 확신을 가지고 고대해 왔다.

그들이 **주님**과 **교사**(教師)를 구별하게 됐다면, 이 첫 제자와 사도들은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훨씬 올바르게 파악했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예고된 멸망과 재림의 약속을 관련시키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날 저녁 내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해석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으로 말씀했다: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고, **유대인**의 물질적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네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것들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나중에 흑암의 왕자가 돼 버린 자, 그다음에는 **아담**, 그 뒤에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미 중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온전히 실현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진리를 더 드러내고 정의의 더욱 나타낼 것임을 확신해라.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는 여덟고 악한 이 세상에도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 또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게 부여하신 후에, 너희의 번영을 계속 추구하고, 내 영을 보냄으로써 천국의 업무를 계속 안내할 것인데, 그 영이 곧 모든

heavens and the new earth appear, but how shall we know when you will return to bring all this about?”

176:1.7 (1914.1)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thoughtful for some time and then said: “You ever err since you always try to attach the new teaching to the old; you are determined to misunderstand all my teaching; you insist on interpreting the gospel in accordance with your established beliefs. Nevertheless, I will try to enlighten you.”

2. THE MASTER'S SECOND COMING

176:2.1 (1914.2) On several occasions Jesus had made statements which led his hearers to infer that, while he intended presently to leave this world, he would most certainly return to consummate the work of the heavenly kingdom. As the conviction grew on his followers that he was going to leave them, and after he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it was only natural for all believers to lay fast hold upon these promises to return. The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us became early incorporated into the teachings of the Christians, and almost every subsequent generation of disciples has devoutly believed this truth and has confidently looked forward to his sometime coming.

176:2.2 (1914.3) If they were to part with their Master and Teacher, how much more did these first disciples and the apostles grasp at this promise to return, and they lost no time in associating the predicted destruction of Jerusalem with this promised second coming. And they continued thus to interpret his words notwithstanding that, throughout this evening of instruction on Mount Olivet, the Master took particular pains to prevent just such a mistake.

176:2.3 (1914.4) In further answer to Peter's question, Jesus said: “Why do you still look for the Son of Man to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expect that the material dreams of the Jews will be fulfilled? Have I not told you all these years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e things which you now look down upon are coming to an end, but this will be a new beginning out of which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go to all the world and this salvation will spread to all peoples. And when the kingdom shall have come to its full fruition, be assured that the Father in heaven will not fail to visit you with an enlarged revelation of truth and an enhanced demonstration of righteousness, even as he has already bestowed upon this world him who became the prince of darkness, and then Adam, who was followed by Melchizedek, and in these days, the Son of Man. And so will my Father continue to manifest his mercy and show forth his love, even to this dark and evil world. So also will I,

육체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비록 내가 이처럼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더라도, 또한 약속하는데,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이 세상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속히 너희를 떠나야 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위탁하신 그 업무를 다 이뤄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니,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동안에는, 우주에 속하는 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안내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나약함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권능을 갖고 영으로 임할 것이다. 육신의 눈은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지만, 오직 영의 눈만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그 시기는 **낙원** 협의회에만 알려졌을 뿐이며;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시대의 충만함이 다 지나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시대의 중역을 계몽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판결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심지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모두 이뤄질 것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관해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추측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시대가 무르익는 것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때를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에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세상이 유평론에 마음을 뺏긴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섭리시대의 영적 봄날이 오는 것을 식별하거나, 새로운 방문{訪問}이 있을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과 관련시키려는 이런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각자 일생의 싸움을 마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라고 부름 받을 때, 너희는 즉시 심판대 앞에 서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섭리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감지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자연스런 생애를 끝까지 누리고, 그렇게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진보하는, 그다음 계시에 내재된 조건과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될 때, 온 세상이 한 시대의 끝에 엄밀한 사실로 부닥쳐야 하는 그것을, 너희는 각자 개인 체험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부닥쳐야 한다.”

after my Father has invested me with all power and authority, continue to follow your fortunes and to guide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by the presence of my spirit, who shall shortly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Even though I shall thus be present with you in spirit, I also promise that I will sometime return to this world, where I have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and achieved the experience of simultaneously revealing God to man and leading man to God. Very soon must I leave you and take up the work the Father has intrusted to my hands, but be of good courage, for I will sometime return. In the meantime, my Spirit of the Truth of a universe shall comfort and guide you.

176:2.4 (1915.1) “You behold me now in weakness and in the flesh, but when I return, it shall be with power and in the spirit. The eye of flesh beholds the Son of Man in the flesh, but only the eye of the spirit will behold the Son of Man glorified by the Father and appearing on earth in his own name.

176:2.5 (1915.2) “But the times of the reappearing of the Son of Man are known only in the councils of Paradise;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know when this will occur. However, you should understand that, when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have been proclaimed to all the world for the salvation of all peoples, and when the fullness of the age has come to pass, the Father will send you another dispensational bestowal, or else the Son of Man will return to adjudge the age.

176:2.6 (1915.3) “And now concerning the travail of Jerusalem, about which I have spoken to you, even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my words are fulfilled; but concerning the times of the coming again of the Son of Man, no one in heaven or on earth may presume to speak. But you should be wise regarding the ripening of an age; you should be alert to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You know when the fig tree shows its tender branches and puts forth its leaves that summer is near. Likewise, when the world has passed through the long winter of material-mindedness and you discern the coming of the spiritual springtime of a new dispensation, should you know that the summertime of a new visitation draws near.

176:2.7 (1915.4) “But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teaching having to do with the coming of the Sons of God? Do you not perceive that, when each of you is called to lay down his life struggle and pass through the portal of death, you stand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judgment, and that you are face to face with the facts of a new dispensation of service in the eternal plan of the infinite Father? What the whole world must face as a literal fact at the end of an age, you, as individuals, must each most certainly face as a personal experience when you reach the end of your natural life and thereby pass on to be confronted with the

주님이 사도들에게 준 모든 강론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의 두 번째 도래라는 이 이중적 주제에 관해, **감람산**에서 이 화요일 저녁에 준 이 말씀처럼 그들의 정신에 그토록 혼란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색다르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후에 기록된 설명들 사이에는,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로, 그 화요일 저녁에 말쑥한 것 대부분이 기록에서 공백으로 남게 되자, 많은 전승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칼리굴라 황제**의 법정에 회부됐던 **셀타**라는 사람이 2세기 아주 초기에 쓴, **메시아**에 관한 **유대** 종말관{終末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복사됐고, 후에는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부분적으로) 첨가 됐다. 열 처녀의 비유가 출현한 것도, **셀타**의 이 기록에서였다. 이날 저녁 가르침만큼 복음서 기록에서 그토록 혼란된 오해를 일으킨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혼동한 적이 결코 없었다.

이 열세 명의 남자는 야영지로 돌아가면서 침묵했고, 감정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다. **유다**는 동역자들을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다윗 세대**, **요한 마가**, 그리고 여러 수제자{首弟子}가 **예수**와 열두 사도를 새 야영지로 맞이한 때는 무척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은 잠을 청하려 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의 멸망, **주님**의 떠나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3. 야영지에서 이어진 토론

20명쯤 되는 그들이 모닥불 앞에 모였을 때, **도마**가 질문했다: “당신이 천국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돌아오려고 하시니,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모닥불 빛이 비추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도마**야, 너마저 내가 말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구나. 너와 천국의 관계가 영적이고 개인적임을,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과 _깨달음으로, 개인이 영 안에서 전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오즈음 내내 네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느냐? 민족들의 멸망, 제국들의 파멸, 믿지 않는 **유대인**의 패망, 한 시대의 종말, 심지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 생명을 맡긴 사람과 무슨 상관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이미 받았다. 너희의 인생은 영으로 살아 왔

conditions and demands inherent in the next revelation of the eternal progression of the Father's kingdom.”

176:2.8 (1915.5) Of all the discourses which the Master gave his apostles, none ever became so confused in their minds as this one, given this Tuesday evening on the Mount of Olives, regarding the twofold subject of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his own second coming. There was, therefore, little agreement between the subsequent written accounts based on the memories of what the Master said on this extraordinary occasion. Consequently, when the records were left blank concerning much that was said that Tuesday evening, there grew up many traditions; and very early in the second century a Jewish apocalyptic about the Messiah written by one Selta, who was attached to the court of the Emperor Caligula, was bodily copied into the Matthew Gospel and subsequently added (in part) to the Mark and Luke records. It was in these writings of Selta that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appeared. No part of the gospel record ever suffered such confusing misconstruction as this evening's teaching. But the Apostle John never became thus confused.

176:2.9 (1915.6) As these thirteen men resumed their journey toward the camp, they were speechless and under great emotional tension. Judas had finally confirmed his decision to abandon his associates. It was a late hour when David Zebedee, John Mark, and a number of the leading disciples welcomed Jesus and the twelve to the new camp, but the apostles did not want to sleep; they wanted to know more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 Master's departure, and the end of the world.

3. LATER DISCUSSION AT THE CAMP

176:3.1 (1916.1) As they gathered about the campfire, some twenty of them, Thomas asked: “Since you are to return to finish the work of the kingdom, what should be our attitude while you are away on the Father's business?” As Jesus looked them over by the firelight, he answered:

176:3.2 (1916.2) “And even you, Thomas, fail to comprehend what I have been saying. Have I not all this time taught you that your connection with the kingdom is spiritual and individual,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in the spirit by the faith-realization that you are a son of God? What more shall I say? The downfall of nations, the crash of empires, the destruction of the unbelieving Jews, the end of an age, even the end of the world, what have these things to do with one who believes this gospel, and who has hid his life in the surety of the eternal kingdom? You who are

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 왔으므로, 너희에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 즉 천상의 세계의 공인된 시민은, 일시적 변혁 때문에 동요되거나 이 세상의 격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생명이 **아들**의 선물이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민족들이 타도되든지, 시대가 끝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눈앞에서 파괴되든지,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앙으로 현세의 인생을 살고 나서, 사랑으로 동료에게 봉사하기까지 올바른 영적 열매를 맺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되는 첫 모험, 즉 땅에서 겪는 모험을 통과하도록 너희를 지탱했던 바로 그 생존하는 신앙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자신 있게 고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별 신자가, 피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사(自然死)를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필생과업을 진행시켜가는 것과 아주 똑같이, 각 세대의 신자들은 있을지도 모를 **사람의 아들**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일단 확립시키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생존의 보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생존하게 하는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인간의 마음 속에 처음 임했던 그 신성한 영의 결실을 점점 더 명백하게 나타낸다. 너희가 하늘 나라의 아들신분으로 한 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점진적인 영적 열매를 육신 속에서 맺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고의로 계속 거부함에도 무조건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에 나와 함께 했던 너희라도, 인류를 위한 **아버지**의 봉사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지금이라도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

“각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세대의 신자로서, 내가 말하는 비유를 들어라: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뢰하는 종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가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인정받은 모든 청지기에게, 그는 각자의 여러 재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알맞게 자신의 재물을 위탁했으며; 그 후에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길을 떠나자, 그 종들은 자신이 맡은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헌신적으로 일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으로 즉시 장사를 시작해서 매우 빨리 다섯 달란트의 추가 이익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곧 두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하여 모든 종이 그렇게 해서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혼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주인의 돈을 감췄다. 이윽고 그 종들의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으며, 계산하기 위해 청지기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주인 앞에 불려오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맡았던 돈과

God-knowing and gospel-believing have already received the assurances of eternal life. Since your lives have been lived in the spirit and for the Father, nothing can be of serious concern to you. Kingdom builders, the accredited citizens of the heavenly worlds, are not to be disturbed by temporal upheavals or perturbed by terrestrial cataclysms. What does it matter to you who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if nations overturn, the age ends, or all things visible crash, since you know that your life is the gift of the Son, and that it is eternally secure in the Father? Having lived the temporal life by faith and having yielded the fruits of the spirit as the righteousness of loving service for your fellows, you can confidently look forward to the next step in the eternal career with the same survival faith that has carried you through your first and earthly adventure in sonship with God.

176:3.3 (1916.3) “Each generation of believers should carry on their work, in view of the possible return of the Son of Man, exactly as each individual believer carries forward his lifework in view of inevitable and ever-impending natural death. When you have by faith once established yourself as a son of God, nothing else matters as regards the surety of survival. But make no mistake! this survival faith is a living faith, and it increasingly manifests the fruits of that divine spirit which first inspired it in the human heart. That you have once accepted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will not save you in the face of the knowing and persistent rejection of those truths which have to do with the progressive spiritual fruit-bearing of the sons of God in the flesh. You who have been with me in the Father’s business on earth can even now desert the kingdom if you find that you love not the way of the Father’s service for mankind.

176:3.4 (1916.4) “As individuals, and as a generation of believers, hear me while I speak a parable: There was a certain great man who, before starting out on a long journey to another country, called all his trusted servants before him and delivered into their hands all his goods.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and to another one. And so on down through the entire group of honored stewards, to each he intrusted his goods according to their several abilities; and then he set out on his journey. When their lord had departed, his servants set themselves at work to gain profits from the wealth intrusted to them. Immediately he who had received five talents began to trade with them and very soon had made a profit of another five talents. In like manner he who had received two talents soon had gained two more. And so did all of these servants make gains for their master except him who received but one talent. He went away by himself and dug a hole in the earth where he hid his lord’s money. Presently the lord of those servants unexpectedly returned and called upon

이익으로 남긴 다른 다섯 달란트를 갖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주여, 당신께서 내게 투자하도록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이익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놓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며, 즉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주여, 당신이 내게 두 달란트를 맡겼는데, 보십시오, 다른 두 달란트를 이렇게 이익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너도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결산하기 위해 거기에 왔다. 이 종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알았고,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은 곳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빈틈없는 분이심을 깨달았으므로, 내게 맡긴 것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까 염려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맡긴 한 달란트를 땅 속에 안전하게 감췄는데, 그것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대답했다: ‘너는 나태하고 게으른 청지기다. 네 부지런한 친구 종들이 오늘 바친 것 같이, 이치에 맞는 이익을 내가 네게 요구하리라는 것을 네가 직접 고백했다.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청지기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이 무익한 종에게서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서 풍족히 갖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직무를 가만히 서서 감당할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성숙되어갈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진리를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야 하며, 동료 종들에 대한 이타적 봉사에 점점 더 성숙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봉사한 것임을 명심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되,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심지어 영원토록 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너희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는 기쁘게, 대단히 큰 즐거움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봉사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살아있으며, 진리의 영은 빛의 자녀를 새로운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의 세계로 언제나

his stewards for a reckoning. And when they had all been called before their master,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came forward with the money which had been intrusted to him and brought five additional talents, saying, ‘Lord, you gave me five talents to invest, and I am glad to present five other talents as my gain.’ And then his lord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I will now set you as steward over many; enter forthwith into the joy of your lord.’ And then he who had received the two talents came forward, saying: ‘Lord, you delivered into my hands two talents; behold, I have gained these other two talents.’ And his lord then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teward; you also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and I will now set you over many; enter you into the joy of your lord.’ And then there came to the accounting he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This servant came forward, saying, ‘Lord, I knew you and realized that you were a shrewd man in that you expected gains where you had not personally labored; therefore was I afraid to risk aught of that which was intrusted to me. I safely hid your talent in the earth; here it is; you now have what belongs to you.’ But his lord answered: ‘You are an indolent and slothful steward. By your own words you confess that you knew I would require of you an accounting with reasonable profit, such as your diligent fellow servants have this day rendered. Knowing this, you ought, therefore, to have at least put my money into the hands of the bankers that on my return I might have received my own with interest.’ And then to the chief steward this lord said: ‘Take away this one talent from this unprofitable servant and give it to him who has the ten talents.’

176:3.5 (1917.1) “To every one who has, more shall be given, and he shall have abundance; but from him who has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You cannot stand still in the affairs of the eternal kingdom. My Father requires all his children to grow in grace and in a knowledge of the truth. You who know these truths must yield the increase of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manifest a growing devo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your fellow servants. And remember that, inasmuch as you minister to one of the least of my brethren, you have done this service to me.

176:3.6 (1917.2) “And so should you go about the work of the Father’s business, now and henceforth, even forevermore. Carry on until I come. In faithfulness do that which is intrusted to you, and thereby shall you be ready for the reckoning call of death. And having thus lived for the glory of the Father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on, you shall enter with joy and exceedingly great pleasure into the eternal service of the everlasting kingdom.”

176:3.7 (1917.3) Truth is living; the Spirit of Truth is ever leading the children of light into new realms of

인도한다. 고정되고, 안전하고, 명예로운 형태로 굳어버리게 하라고 진리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계시되는 진리는, 너희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증진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맺힌 영적 열매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제적인 영적 증진이 보일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하여 영적 실체들에 대한 신성한 평가를 위해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만이, “**저희의 주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는**” 희망을 언제나 품을 수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청지기직분에 관해, **예수**의 거짓 추종자들이, “**주님**, 당신이 백 년 또는 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맡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보존했으며; 우리를 가르친 것을 조금도 변경되지 않게 했으며;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세대마다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광경인지 모른다. 그러나 영적 나태함을 나타내는 그런 변명은, 진리에 대해 무기력한 청지기를 **주님** 앞에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주님**은, 너희의 손에 얼마나 진리를 맡겼는가에 따라서 계산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재능과 청지기직분에 대해 다음 세상에 가서 답변해야만 할 것이다. 타고난 재주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정당하고 자비로운 계산서를 받게 된다. 오직 이기적인 추구에만 재능을 사용하고, 영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는 더 고귀한 의무에 생각을 쏟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대해 늘 확장해야 할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증명해야 할 때, 그런 이기적인 청지기는, 자신이 고의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필사자는, 자신의 나태함을 직접 주인 탓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 받은 이 불충한 종과 얼마나 흡사한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때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하늘의 진리를 거저 줘야 하며, 너희가 이 진리를 내어줌에도, 오히려 줄 때마다 배가(倍加)될 것이고, 구원하는 은혜의 빛이 더욱 빛날 것이다.

4. 미가엘의 재림

주님의 모든 교훈 중에서,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큼 많이 오해된 것이 없었다. **미가엘**이 이 세상 필사자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증여되는 체험을 했던 행성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제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

spiritual reality and divine service. You are not given truth to crystallize into settled, safe, and honored forms. Your revelation of truth must be so enhanced by passing through your personal experience that new beauty and actual spiritual gains will be disclosed to all who behold your spiritual fruits and in consequence thereof are led to glorify the Father who is in heaven. Only those faithful servants who thus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ho thereby develop the capacity for divine appreciation of spiritual realities, can ever hope to “enter fully into the joy of their Lord.” What a sorry sight for successive generations of the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to say, regarding their stewardship of divine truth: “Here, Master, is the truth you committed to us a hundred or a thousand years ago. We have lost nothing; we have faithfully preserved all you gave us; we have allowed no changes to be made in that which you taught us; here is the truth you gave us.” But such a plea concerning spiritual indolence will not justify the barren steward of truth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committed to your hands will the Master of truth require a reckoning.

176:3.8 (1918.1) In the next world you will be asked to give an account of the endowments and stewardships of this world. Whether inherent talents are few or many, a just and merciful reckoning must be faced. If endowments are used only in selfish pursuits and no thought is bestowed upon the higher duty of obtaining increased yield of the fruits of the spirit, as they are manifested in the ever-expanding service of men and the worship of God, such selfish stewards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eir deliberate choosing.

176:3.9 (1918.2) And how much like all selfish mortals was this unfaithful servant with the one talent in that he blamed his slothfulness directly upon his lord. How prone is man, when he is confronted with the failures of his own making, to put the blame upon others, oftentimes upon those who least deserve it!

176:3.10 (1918.3) Said Jesus that night as they went to their rest: “Freely have you received; therefore freely should you give of the truth of heaven, and in the giving will this truth multiply and show forth the increasing light of saving grace, even as you minister it.”

4. THE RETURN OF MICHAEL

176:4.1 (1918.4) Of all the Master's teachings no one phase has been so misunderstood as his promise sometime to come back in person to this world. It is not strange that Michael should be interested in sometime returning to the planet whereon he experienced his seventh and last bestowal, as a mortal of the realm. It is only natural to believe that

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런 독특한 생애를 살았던,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제한으로 증여한 우주 능력과 권세를 마침내 스스로 획득했던 그 세상에,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우주 주권을 획득하는 동안 출현했던 일곱 구체 가운데 하나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의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밝혔다. **주님**이 현세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추종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파되고 **유대** 국가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의 약속과 이 비극적 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관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폐파하고 **유대지방**의 **유대인**을 흩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추종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시대의 끝, 심지어 세상의 종말과 관련시키는 믿음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올라간 후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게 된 후에, 두 가지 일을 할 것을 약속했다. 첫째로, 그는 자기 대신 다른 선생, 즉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오순절** 날에 지켰다. 둘째로, 그가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리라는 것을, 추종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육신 속에서 증여 체험을 했던 이 행성에, 어떻게, 어디에, 또는 언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꼭 한 번 그것을 암시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육신 속에 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가능한 여러 방문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 영적 신앙의 눈으로만 식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운데 다수는, 오는 시대들 동안 **예수**께서 여러 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주의 여러 청호 가운데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는 명칭을 가진 그분이, 자신의 정복으로 인해 그런 독특한 청호가 수여된 세계를 여러 번 방문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다시 오리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현재 시대의 최종 심판과 관련된 때 일어날 것인가? 또는 **집정관 아들**과의 공동 출현과 함께,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일어날 것인가? 차후의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관련해서 올 것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올 것인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돌아올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우주

Jesus of Nazareth, now sovereign ruler of a vast universe, would be interested in coming back, not only once but even many times, to the world whereon he lived such a unique life and finally won for himself the Father's unlimited bestowal of universe power and authority. Urantia will eternally be one of the seven nativity spheres of Michael in the winning of universe sovereignty.

176:4.2 (1918.5) Jesus did, on numerous occasions and to many individuals, declare his intention of returning to this world. As his followers awakened to the fact that their Master was not going to function as a temporal deliverer, and as they listened to his predictions of the overthrow of Jerusalem and the downfall of the Jewish nation, they most naturally began to associate his promised return with these catastrophic events. But when the Roman armies leveled the walls of Jerusalem, destroyed the temple, and dispersed the Judean Jews, and still the Master did not reveal himself in power and glory, his followers began the formulation of that belief which eventually associate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ith the end of the age, even with the end of the world.

176:4.3 (1918.6) Jesus promised to do two things after he had ascended to the Father, and after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d been placed in his hands. He promised, first, to send into the world, and in his stead, another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nd this he did on the day of Pentecost. Second, he most certainly promised his followers that he would sometime personally return to this world. But he did not say how, where, or when he would revisit this planet of his bestowal experience in the flesh. On one occasion he intimated that, whereas the eye of flesh had beheld him when he lived here in the flesh, on his return (at least on one of his possible visits) he would be discerned only by the eye of spiritual faith.

176:4.4 (1919.1) Many of us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Jesus will return to Urantia many times during the ages to come. We do not have his specific promise to make these plural visits, but it seems most probable that he who carries among his universe titles that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many times visit the world whose conquest conferred such a unique title upon him.

176:4.5 (1919.2) We most positively believe that Michael will again come in person to Urantia, but we have not the slightest idea as to when or in what manner he may choose to come. Will his second advent on earth be timed to occur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l judgment of this present age, either with or without the associated appearance of a Magisterial Son? Will he come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of some subsequent Urantian age? Will he come unannounced and as an isolated event? We do not

의 최고 통치자로서 올 것이므로,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봐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그의 임재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의 출현은 먼 훗날로 연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일련의 사건 또는 정해진 시기를, **주님**이 몸소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에 관련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 또는 무엇과 관련해서 이 약속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무 때라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시대가 지나가고, 그와 관련된 **낙원** 단체의 **아들**들에게 그 시대들이 정식으로 판결 받을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미가엘이 이 땅에 두 번째 출현하는 것은, 중도자는 물론 인간에게 엄청난 감상적 가치를 지닌 사건이지만; 다른 면에서 이것은 중도자에게 아무런 직접 의미가 없으며, 보통 일어나는 자연사(自然死)의 사건만이 가장 직접적인 순간이고 인간에게 실제로 중요한데, 자연사는 우리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바로 그 **예수** 앞으로 직접 인도해주는, 이어지는 우주 사건들의 통제 속으로 필사적 사람을 즉시 떨어뜨릴 것이다. 빛의 자녀는 모두 그를 만나게 돼있으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든지, 또는 혹시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서 있듯이, 너희도 그를 이 땅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그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 있게 고대하지만, 그가 어떻게, 언제, 또는 어떤 것과 관련하여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know. Only one thing we are certain of, that is, when he does return, all the world will likely know about it, for he must come as the supreme ruler of a universe and not as the obscure babe of Bethlehem. But if every eye is to behold him, and if only spiritual eyes are to discern his presence, then must his advent be long deferred.

176:4.6 (1919.3) You would do well, therefore, to disassociate the Master's personal return to earth from any and all set events or settled epochs. We are sure of only one thing: He has promised to come back. We have no idea as to when he will fulfill this promise or in what connection. As far as we know, he may appear on earth any day, and he may not come until age after age has passed and been duly adjudicated by his associated Sons of the Paradise corps.

176:4.7 (1919.4) The second advent of Michael on earth is an event of tremendous sentimental value to both midwayers and humans; but otherwise it is of no immediate moment to midwayers and of no more practical importance to human beings than the common event of natural death, which so suddenly precipitates mortal man into the immediate grasp of that succession of universe events which leads directly to the presence of this same Jesus, the sovereign ruler of our universe. The children of light are all destined to see him, and it is of no serious concern whether we go to him or whether he should chance first to come to us. Be you therefore ever ready to welcome him on earth as he stands ready to welcome you in heaven. We confidently look for his glorious appearing, even for repeated comings, but we are wholly ignorant as to how, when, or in what connection he is destined to appear.

제177편. 수요일, 휴식한 날

⇨ 176

유랜시아 책

178 ⇨

IV 부. 예수와 교훈

제177편
수요일, 휴식한 날

섹션

소개

1. 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루
2.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
3. 그날 야영지에서
4. 유다와 제사장들
5. 마지막 친교 시간

PAPER 177

WEDNESDAY, THE REST DAY

SECTIONS

Introduction

1. One Day Alone with God
2. Early Home Life
3. The Day at Camp
4. Judas and the Chief Priests
5. The Last Social Hour

소개

가르치는 업무를 강행하지 않아도 될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늘 휴식을 취하곤 했다. 이 특별한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침 식사를 했고, 야영지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으며; 아침 식사시간이 반쯤 지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했다: “오늘은 너희가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후로 생긴 일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명백히 말했던, 앞으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묵상해 보거라. 진리가 너희 삶에 함께 있다는 것과, 너희가 은혜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라.”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지 않겠다고 **안드레**에게 말씀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예수께서 혼자 동산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됐을 때, **다윗 세베대**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주님**, **바리새인**과 관리들이 당신을 죽이려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어떻게 홀로 동산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험하니; 당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필 준비가 잘 된 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잘 무장된 건장한 세 **갈릴**

INTRODUCTION

177:0.1 (1920.1) WHEN the work of teaching the people did not press them, it was the custom of Jesus and his apostles to rest from their labors each Wednesday. On this particular Wednesday they ate breakfast somewhat later than usual, and the camp was pervaded by an ominous silence; little was said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morning meal. At last Jesus spoke: “I desire that you rest today. Take time to think over all that has happened since we came to Jerusalem and meditate on what is just ahead, of which I have plainly told you. Make sure that the truth abides in your lives, and that you daily grow in grace.”

177:0.2 (1920.2) After breakfast the Master informed Andrew that he intended to be absent for the day and suggested that the apostles be permitted to spend the time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hoosing, except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y go within the gates of Jerusalem.

177:0.3 (1920.3) When Jesus made ready to go into the hills alone, David Zebedee accosted him, saying: “You well know, Master, that the Pharisees and rulers seek to destroy you, and yet you make ready to go alone into the hills. To do this is folly; I will therefore send three men with you well prepared to see that no harm befalls you.” Jesus looked over the three well-armed and stalwart

리인을 보면서 **다윗**에게 말씀했다: “네 호의는 고맙지만, **사람의 아들**은 자기를 방어해 줄 사람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구나. 내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 생애를 마치도록 준비되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 손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 혼자 가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무장된 감시병들은 물러갔지만, **예수**께서 홀로 출발할 때, **요한 마가**가 음식과 물이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아마 배고프시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제안했다. **주님**은, **요한**에게 미소 지으면서 바구니를 받으러 가까이 다가갔다.

1. 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루

예수께서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받아 들자, 젊은이가 감히 말했다: “그렇지만 **주님**, 바구니를 놔두고 기도해 몰두하시게 되면, 아마 그것을 잊으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점심을 갖고 따라가면, 아마 더 자유롭게 경배하실 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동안 아주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께서 혼자 떨어져 기도하시는 동안, 바구니 옆에 남아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운데 더러는 그 무모함에 놀랐지만, **요한**은 바구니를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요한**과 **예수**께서 바구니를 같이 붙잡고 서 있었다. 이윽고 **주님**은 같이 가도록 허락하고,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전심으로 나와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거절할 수 없구나. 우리끼리 따로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는 무엇이든지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물어봐도 괜찮으며, 서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자. 내가 먼저 점심 바구니를 들고 가고, 힘들면 내가 도와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진리를 갈망하는 청년과 함께 머물고, **낙원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 땅에서 평온한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 사건은 “한 젊은이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날”로 저 높은 곳에 알려지게 됐다. 이 장면은,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나누는 교제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청년일지라도, 마음 속에 정말 최상으로 원하면, 우주의 **하나님**의 눈길을 끌 수 있고, 사랑스런 동무관계를 누릴 수 있으며, 하루 종일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수 없는 황홀경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지방**에 있는 언덕에서 이 수요일에 **요한 마가**만이 그런 독특한 체험을 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일에 관해 자연스럽게 말씀하면서, **요한**과 긴 시간을 보

Galileans and said to David: “You mean well, but you err in that you fail to understand that the Son of Man needs no one to defend him. No man will lay hands on me until that hour when I am ready to lay down my life in conformity to my Father’s will. These men may not accompany me. I desire to go alone, that I may commune with the Father.”

177:0.4 (1920.4) Upon hearing these words, David and his armed guards withdrew; but as Jesus started off alone, John Mark came forward with a small basket containing food and water and suggested that, if he intended to be away all day, he might find himself hungry. The Master smiled on John and reached down to take the basket.

1. ONE DAY ALONE WITH GOD

177:1.1 (1920.5) As Jesus was about to take the lunch basket from John’s hand, the young man ventured to say: “But, Master, you may set the basket down while you turn aside to pray and go on without it. Besides, if I should go along to carry the lunch, you would be more free to worship, and I will surely be silent. I will ask no questions and will stay by the basket when you go apart by yourself to pray.”

177:1.2 (1920.6) While making this speech, the temerity of which astonished some of the near-by listeners, John had made bold to hold on to the basket. There they stood, both John and Jesus holding the basket. Presently the Master let go and, looking down on the lad, said: “Since with all your heart you crave to go with me, it shall not be denied you. We will go off by ourselves and have a good visit. You may ask me any question that arises in your heart, and we will comfort and console each other. You may start out carrying the lunch, and when you grow weary, I will help you. Follow on with me.”

177:1.3 (1921.1) Jesus did not return to the camp that evening until after sunset. The Master spent this last day of quiet on earth visiting with this truth-hungry youth and talking with his Paradise Father. This event has become known on high as “the day which a young man spent with God in the hills.” Forever this occasion exemplifies the willingness of the Creator to fellowship the creature. Even a youth, if the desire of the heart is really supreme, can command the attention and enjoy the loving companionship of the God of a universe, actually experience the unforgettable ecstasy of being alone with God in the hills, and for a whole day. And such was the unique experience of John Mark on this Wednesday in the hills of Judea.

177:1.4 (1920.8) Jesus visited much with John, talking freely about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 next.

냈다. **요한**은 사도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충분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예수**께 말했고, **페니키아**로 여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에서 첫 설교를 들은 후 줄곧 그들을 따라다니도록 허락받았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예수**께서는, 곧 다가올 사건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소년에게 권하고, 그가 천국의 강력한 전파자로 살게 될 것임을 확신시켰다.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날의 기억 때문에 감동되기는 했지만, **겔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가게 됐을 때, “자, **요한**아,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갖고 하루를 잘 쉬었는데,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훈계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보낸 이날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 **요한 마가**는 줄곧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 소년은 항상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실 때에만 잠을 잤다.

2. 어렸을 때의 가정 생활

예수께서는, 이날 **요한 마가**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 체험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부모가 소유했던 것보다, **요한**의 부모가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소유했지만, 소년 시절 체험은 서로 많이 흡사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부모와 다른 식구들을 더 잘 이해하기에 도움 될 많은 것을 말씀했다. 소년이 **주님**께, 자기가 “천국의 강력한 전파자”가 될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는 현재의 네 신앙과 사랑이, 네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받아 온 훈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천국 복음에 충성스러울 것임을 안다. 너는 부모가 서로 진실한 애정을 품는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며, 따라서 자신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해롭게 높일 만큼 과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 또한 네 인격은, 네 신뢰감과 충성심, 즉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부모가 아무 사랑도 없이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왜곡되는 체험을 하지도 않았다. 너는 건전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정상적인 안정감을 촉진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너는, 네 부모가 사랑뿐 아니라 지혜도 소유했던 행운을 누렸으며; 그들이 너를 이웃 놀이친구들과 함께 회당 학교에 보내고 있는 동안, 돈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사치품과 각종 탐닉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도했고, 그들은 또한 네가 독창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너에게 용기를 줬다. 너는 네 어린 친구 **아모스**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

John told Jesus how much he regretted that he had not been old enough to be one of the apostles and expressed his great appreciation that he had been permitted to follow on with them since their first preaching at the Jordan ford near Jericho, except for the trip to Phoenicia. Jesus warned the lad not to become discouraged by impending events and assured him he would live to become a mighty messenger of the kingdom.

177:1.5 (1920.9) John Mark was thrilled by the memory of this day with Jesus in the hills, but he never forgot the Master's final admonition, spoken just as they were about to return to the Gethsemane camp, when he said: "Well, John, we have had a good visit, a real day of rest, but see to it that you tell no man the things which I told you." And John Mark never did reveal anything that transpired on this day which he spent with Jesus in the hills.

177:1.6 (1920.10) Throughout the few remaining hours of Jesus' earth life John Mark never permitted the Master for long to get out of his sight. Always was the lad in hiding near by; he slept only when Jesus slept.

2. EARLY HOME LIFE

177:2.1 (1921.5) In the course of this day's visiting with John Mark, Jesus spent considerable time comparing their early childhood and later boyhood experiences. Although John's parents possessed more of this world's goods than had Jesus' parents, there was much experience in their boyhood which was very similar. Jesus said many things which helped John better to understand his parents and other members of his family. When the lad asked the Master how he could know that he would turn out to be a "mighty messenger of the kingdom," Jesus said:

177:2.2 (1921.6) "I know you will prove loyal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because I can depend upon your present faith and love when these qualities are grounded upon such an early training as has been your portion at home. You are the product of a home where the parents bear each other a sincere affection, and therefore you have not been overloved so as injuriously to exalt your concept of self-importance. Neither has your personality suffered distortion in consequence of your parents' loveless maneuvering for your confidence and loyalty, the one against the other. You have enjoyed that parental love which insures laudable self-confidence and which fosters normal feelings of security. But you have also been fortunate in that your parents possessed wisdom as well as love; and it was wisdom which led them to withhold most forms of indulgence and many luxuries which wealth can buy while they sent you to the synagogue school along with your neighborhood

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 왔었다. 너희 둘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네 부모는 나를 따르는 일에 동의했고, **아모스**의 부모는 거절했으며; 그들은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복된 체험, 더욱이 네가 오늘 누리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아모스**는 집에서 도망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상처받은 사랑과 희생된 충성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현명한 것이었더라도, 체험, 독립, 및 자유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렀을지 모른다. 네 부모 같은 그런 현명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네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키워주고 건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사랑에 상처를 주거나 충성심을 억압할 필요가 없도록 처리할 것이다.

“**요한**아, 사랑은 온전히 지혜로운 존재들이 부여할 때에는 우주의 최고 실체가 되지만, 필사자 부모의 체험에서 나타날 때에는 위험스러우며, 때로는 약간 이기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네가 결혼하여 네 아이를 기르게 되거든, 지혜의 훈계를 받고 지성의 인도를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네 어린 친구 **아모스**도 네가 믿는 만큼 이 천국 복음을 믿지만,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 그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믿음직스런 사람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아모스**는 정상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현명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도 가운데 하나와 너무도 흡사하다. 너는 정상적이고 잘 정돈된 가정에서 인생의 첫 8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모든 삶은 더욱 행복하고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너는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므로, 강건하고 원만한 성품을 지녔다. 그런 어린 시절의 훈련으로 인해 생성된 유형의 충성심이, 네가 시작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리라는 확신을 나에게 줬다.”

예수와 **요한**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 토의를 한 시간 넘게 계속했다. 어린아이가 인간관계나 신(神)과의 관계에 대해 처음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족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 초기 개념을 얻는 데 부모 및 관련된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주님**은 **요한**에게 계속 설명했다. 자녀는 우주에 대한 첫 인상을 어머니의 보살핌에서 얻으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첫 개념은, 육신의 아버지와 갖는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녀의 이어지는 생애는, 그의 어린 시절의 정신적 및 감정적 생활에 따라서,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되고, 편안하게 또는 어렵게 되는데, 가정의 이 사회적 및 영적 관계에 좌우된다. 인간의 전체 여생은, 태어난 후 처음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크게 영향 받는다.

playfellows, and they also encouraged you to learn how to live in this world by permitting you to have original experience. You came over to the Jordan, where we preached and John's disciples baptized, with your young friend Amos. Both of you desired to go with us. When you returned to Jerusalem, your parents consented; Amos's parents refused; they loved their son so much that they denied him the blessed experience which you have had, even such as you this day enjoy. By running away from home, Amos could have joined us, but in so doing he would have wounded love and sacrificed loyalty. Even if such a course had been wise, it would have been a terrible price to pay for experience, independence, and liberty. Wise parents, such as yours, see to it that their children do not have to wound love or stifle loyalty in order to develop independence and enjoy invigorating liberty when they have grown up to your age.

177:2.3 (1922.1) “Love, John, is the supreme reality of the universe when bestowed by all-wise beings, but it is a dangerous and oftentimes semiselfish trait as it is manifested in the experience of mortal parents. When you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of your own to rear, make sure that your love is admonished by wisdom and guided by intelligence.

177:2.4 (1922.2) “Your young friend Amos believes this gospel of the kingdom just as much as you, but I cannot fully depend upon him; I am not certain about what he will do in the years to come. His early home life was not such as would produce a wholly dependable person. Amos is too much like one of the apostles who failed to enjoy a normal, loving, and wise home training. Your whole afterlife will be more happy and dependable because you spent your first eight years in a normal and well-regulated home. You possess a strong and well-knit character because you grew up in a home where love prevailed and wisdom reigned. Such a childhood training produces a type of loyalty which assures me that you will go through with the course you have begun.”

177:2.5 (1922.3) For more than an hour Jesus and John continued this discussion of home life. The Master went on to explain to John how a child is wholly dependent on his parents and the associated home life for all his early concepts of everything intellectual, social, moral, and even spiritual since the family represents to the young child all that he can first know of either human or divine relationships. The child must derive his first impressions of the universe from the mother's care; he is wholly dependent on the earthly father for his first ideas of the heavenly Father. The child's subsequent life is made happy or unhappy, easy or difficult, in accordance with his early mental and emotional life, conditioned by these social and spiritual relationships of the home. A human being's entire afterlife is enormously influenced by what happens during the first few

예수께서 가르친, 아버지_자녀 관계에 기초를 둔 그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 생활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될 그런 때에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을 고귀하게 만들기에 필요한 지식과 진리를, 20세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이 가졌음에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생활이 즉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의 가정이나 **유대지방**에 있었던 **마가**의 가정처럼 훌륭한 환경을 이루는 경우는, 현대 가정에서도 매우 드문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현명한 가정의 사랑하는 생활과 참 종교에 대한 충실한 헌신,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가정생활은 종교심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종교심은 가정을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

이런 옛 **유대인** 가정에 있었던, 발육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향과 속박하는 특색 가운데 다수가, 더 잘 통제된 현대 가정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정말로, 더 자연스런 해방과, 훨씬 더 개인적인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는 사랑으로 억제되고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며, 지혜가 주는 이성적 질서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자라나는 모든 아이의 마음과 정신 속에 훌륭하게 간직되도록,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엄청난 책임이,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다.

3. 그날 야영지에서

사도들은 **감람산**을 거닐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야영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이날 대부분을 보냈지만, 오후부터는 **예수**께서 돌아오기를 몹시 고대하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안전이 더 염려됐으며; 그가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말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함을 느꼈다. **주님**이 오직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홀로 동산에 오르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해 종일 논란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요한 마가** 대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

오후 중반쯤에, **나다니엘**이 6명 정도의 사도와 많은 제자 앞에서 “최상의 욕망”에 대해 연설했고, 이렇게 끝맺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잘못된 점은 속으로 망설인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기에 실패했다. **요한 마가**가 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를 따라가고자 했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주님** 앞으

years of existence.

177:2.6 (1922.4) It is our sincere belief that the gospel of Jesus' teaching, founded as it is on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can hardly enjoy a world-wide acceptance until such a time as the home life of the modern civilized peoples embraces more of love and more of wisdom. Notwithstanding that parents of the twentieth century possess great knowledge and increased truth for improving the home and ennobling the home life, it remains a fact that very few modern homes are such good places in which to nurture boys and girls as Jesus' home in Galilee and John Mark's home in Judea, albeit the acceptance of Jesus' gospel will result in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home life. The love life of a wise home and the loyal devotion of true religion exert a profound reciprocal influence upon each other. Such a home life enhances religion, and genuine religion always glorifies the home.

177:2.7 (1923.1) It is true that many of the objectionable stunting influences and other cramping features of these olden Jewish homes have been virtually eliminated from many of the better-regulated modern homes. There is, indeed, more spontaneous freedom and far more personal liberty, but this liberty is not restrained by love, motivated by loyalty, nor directed by the intelligent discipline of wisdom. As long as we teach the child to pray, “Our Father who is in heaven,” a tremendous responsibility rests upon all earthly fathers so to live and order their homes that the word *father* becomes worthily enshrined in the minds and hearts of all growing children.

3. THE DAY AT CAMP

177:3.1 (1923.2) The apostles spent most of this day walking about on Mount Olivet and visiting with the disciples who were encamped with them, but early in the afternoon they became very desirous of seeing Jesus return. As the day wore on, they grew increasingly anxious about his safety; they felt inexpressibly lonely without him. There was much debating throughout the day as to whether the Master should have been allowed to go off by himself in the hills, accompanied only by an errand boy. Though no man openly so expressed his thoughts, there was not one of them, save Judas Iscariot, who did not wish himself in John Mark's place.

177:3.2 (1923.3) It was about midafternoon when Nathaniel made his speech on “Supreme Desire” to about half a dozen of the apostles and as many disciples, the ending of which was: “What is wrong with most of us is that we are only halfhearted. We fail to love the Master as he loves us. If we had all wanted to go with him as much as John Mark did, he would surely have taken us all. We stood by while the lad approached the Master

로 달려가서 바구니를 내 밀고, **주님**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실 때 물려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 남겨두고, 바구니와 소년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동산으로 가버리셨다.”

네 시쯤 돼서,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벳새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갖고 왔다. **다윗**은 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며칠 전에 이미 확신했다. **다윗**은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음을 알았고, **예수**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그를 방어하기 위한 추종자들의 무력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재촉했다.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했고, 이제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전 가족이 길을 떠났으며, 내일 저녁 또는 모레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도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갖고, 그 심부름꾼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를 만났던 20명 이상의 **그리스인**이 야영지에 도착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여러 시간 논의 했다. 이 **그리스인**,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에게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진보돼 있었다.

그날 저녁에, 야영지로 돌아온 **예수**께서 **그리스인**을 만났으며, 70인을 임명했던 것처럼 이 20명의 **그리스인**도 임명하려 했던 것이, 사도들과 여러 수제자의 마음을 크게 혼란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야영지에서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께서 대중에게 연설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사장과 장로들이 몹시 놀랐다. 정말로, 하루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나면서, “너희 집을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두고 나는 떠난다”고 말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파의 호의적인 태도 속에서 부추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반면, **주님**이 대중에게 한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의 권세에 모든 합당한 방법으로 순응하도록 권고해 왔었다. 그러나 그 성(城)에서 보낸 하루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면서 바쁘게 지나갔다.

예수께서 매일 밤 **베다니**로 나갔었지만, 그날

and offered him the basket, but when the Master took hold of it, the lad would not let go. And so the Master left us here while he went off to the hills with basket, boy, and all.”

177:3.3 (1923.4) About four o'clock, runners came to David Zebedee bringing him word from his mother at Bethsaida and from Jesus' mother. Several days previously David had made up his mind that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were going to kill Jesus. David knew they were determined to destroy the Master, and he was about convinced that Jesus would neither exert his divine power to save himself nor permit his followers to employ force in his defense. Having reached these conclusions, he lost no time in dispatching a messenger to his mother, urging her to come at once to Jerusalem and to bring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every member of his family.

177:3.4 (1923.5) David's mother did as her son requested, and now the runners came back to David bringing the word that his mother and Jesus' entire family were on the way to Jerusalem and should arrive sometime late on the following day or very early the next morning. Since David did this on his own initiative, he thought it wise to keep the matter to himself. He told no one, therefore, that Jesus' family was on the way to Jerusalem.

177:3.5 (1924.1) Shortly after noon, more than twenty of the Greeks who had met with Jesus and the twelve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arrived at the camp, and Peter and John spent several hours in conference with them. These Greeks, at least some of them, were well advanced in the knowledge of the kingdom, having been instructed by Rodan at Alexandria.

177:3.6 (1924.2) That evening, after returning to the camp, Jesus visited with the Greeks, and had it not been that such a course would have greatly disturbed his apostles and many of his leading disciples, he would have ordained these twenty Greeks, even as he had the seventy.

177:3.7 (1924.3) While all of this was going on at the camp, in Jerusalem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were amazed that Jesus did not return to address the multitudes. True, the day before, when he left the temple, he had said, “I leave your house to you desolate.” Bu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he would be willing to forgo the great advantage which he had built up in the friendly attitude of the crowds. While they feared he would stir up a tumult among the people, the Master's last words to the multitude had been an exhortation to conform in every reasonable manner with the authority of those “who sit in Moses' seat.” But it was a busy day in the city as they simultaneously prepared for the Passover and perfected their plans for destroying Jesus.

177:3.8 (1924.4) Not many people came to the camp,

은 거기에 머물 예정임을 아는 모든 사람이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야영지에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for its establishment had been kept a well-guarded secret by all who knew that Jesus was expecting to stay there in place of going out to Bethany every night.

4. 유다와 제사장들

예수와 **요한 마가**가 야영지를 떠난 직후에, **가롯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사라졌고, 그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란에 빠지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대체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비공식 모임이었고, 아침 열 시 직후로 약속 됐다. 이 모임은, **예수**를 고발하는 데 쓰일 죄의 목록의 본질을 의논하고, 그들이 이미 그에게 선고했던 사형 연도에 필수적인, 국가의 확인을 보장할 목적으로, **예수**를 **로마** 권세자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어떤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됐다.

유다는 전날에, **예수**가 악의 없는 몽상가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며,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음을, 친척과 아버지 가족의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내비쳤다. **유다**는 전체 활동으로부터 은혜롭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를 몹시 원한다고 진술했다. 친구들은, 그의 탈퇴가 **유대인** 관리들에게 큰 사건으로서 환영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아침하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가 **산헤드린**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의이기는 했지만 “무식한 **갈릴리인**과 불행하게 연합함”으로 인한 오점(汚點)을 결국 씻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했다.

유다는, **주님**이 행했던 기적이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예수**께서 **유대인** 관리들에게 죽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리라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됐고, 실패로 끝나는 활동에 자신도 함께 했다는 굴욕적인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평백한 실패를, 그는 받아들이 수 없었다. 그는 **주님**의 불굴의 성품과 위엄 있고 자비로운 정신의 예리함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예수**께서 좋은 의미에서는 열광적이라고 하겠지만, 아마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가 항상 예상 밖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임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다.

4. JUDAS AND THE CHIEF PRIESTS

177:4.1 (1924.5) Shortly after Jesus and John Mark left the camp, Judas Iscariot disappeared from among his brethren, not returning until late in the afternoon. This confused and discontented apostle, notwithstanding his Master's specific request to refrain from entering Jerusalem, went in haste to keep his appointment with Jesus' enemies at the hom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This was an informal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had been appointed for shortly after ten o'clock that morning. This meeting was called to discuss the nature of the charges which should be lodged against Jesus and to decide upon the procedure to be employed in bringing him before the Roman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necessary civil confirmation of the death sentence which they had already passed upon him.

177:4.2 (1924.6) On the preceding day Judas had disclosed to some of his relatives and to certain Sadducean friends of his father's family that he ha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while Jesus was a well-meaning dreamer and idealist, he was not the expected deliverer of Israel. Judas stated that he would very much like to find some way of withdrawing gracefully from the whole movement. His friends flatteringly assured him that his withdrawal would be hailed by the Jewish rulers as a great event, and that nothing would be too good for him. They led him to believe that he would forthwith receive high honors from the Sanhedrin, and that he would at last be in a position to erase the stigma of his well-meant but “unfortunate association with untaught Galileans.”

177:4.3 (1924.7) Judas could not quite believe that the mighty works of the Master had been wrought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but he was now fully convinced that Jesus would not exert his power in self-aggrandizement; he was at last convinced that Jesus would allow himself to be destroyed by the Jewish rulers, and he could not endure the humiliating thought of being identified with a movement of defeat. He refused to entertain the idea of apparent failure. He thoroughly understood the sturdy character of his Master and the keenness of that majestic and merciful mind, yet he derived pleasure from even the partial entertainment of the suggestion of one of his relatives that Jesus, while he was a well-meaning fanatic, was probably not really sound of mind; that he had always appeared to be a strange and misunderstood person.

그리고 이제 **유다**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더 큰 명예로운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상스러운 만큼 분개하게 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사도들의 회계를 담당한 명예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예수**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노가 갑자기 그에게 엄습했으며, **예수**를 팔려는 생각보다는,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에게 더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새롭고 압도적인 생각이 그의 의식하는 정신을 점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스스로 명예를 얻기에 착수했으며, 이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줬던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 혼동, 자존심, 절망, 그리고 결단이 끔찍하게 뭉쳐서 그를 사로잡았다. 따라서 **유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유다는 **가야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고 떠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그리하여 하늘 나라의 대의(大義)를 저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예수**와 새로운 천국 복음에 자신이 처음 참여하기로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명예와 영광이, 언젠가는 최대한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보장받겠다고 결심했다. 전체 사도가 한때 이 야심을 **유다**처럼 가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그랬다.

배신자가 **가야바**와 **유대인** 관리들 앞으로 나왔고, 그들 앞에는 그의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가 **예수**의 교활한 가르침에 잘못 빠졌던 것을 발견하고, **갈릴리** 사람들과의 연합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체념하고 싶은 처지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유대지방** 형제들의 신뢰와 교제로 복권(復權)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유다**를 위한 이 대변자는, **예수**가 감금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방책을 **유다**가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그가 그런 잘못된 운동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증거로, 그리고 이제 진정 **모세**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로, **예수**를 체포하도록 명령 받은 군대 책임자와 함께 그를 조용히 붙잡을 수 있게 조치하고, 그리하여 군중을 동요시키는 위험 또는 그의 체포를 **유월절** 이후로 연기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는 일을 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청하려고 **산헤드린**에 왔다고, 계속 설명했다.

177:4.4 (1925.1) And now, as never before, Judas found himself becoming strangely resentful that Jesus had never assigned him a position of greater honor. All along he had appreciated the honor of being the apostolic treasurer, but now he began to feel that he was not appreciated; that his abilities were unrecognized. He was suddenly overcome with indignation that Peter, James, and John should have been honored with close association with Jesus, and at this time, when he was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home, he was bent on getting even with Peter, James, and John more than he was concerned with any thought of betraying Jesus. But over and above all, just then, a new and dominating thought began to occupy the forefront of his conscious mind: He had set out to get honor for himself, and if this could be secured simultaneously with getting even with those who had contributed to the greatest disappointment of his life, all the better. He was seized with a terrible conspiracy of confusion, pride, desperation, and determination. And so it must be plain that it was not for money that Judas was then on his way to the home of Caiaphas to arrange for the betrayal of Jesus.

177:4.5 (1925.2) As Judas approached the home of Caiaphas, he arrived at the final decision to abandon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and having thus made up his mind to desert the 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he was determined to secure for himself as much as possible of that honor and glory which he had thought would sometime be his when he first identified himself with Jesus an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All of the apostles once shared this ambition with Judas, but as time passed they learned to admire truth and to love Jesus, at least more than did Judas.

177:4.6 (1925.3) The traitor was presented to Caiaphas and the Jewish rulers by his cousin, who explained that Judas, having discovered his mistake in allowing himself to be misled by the subtle teaching of Jesus, had arrived at the place where he wished to make public and formal renunciation of his association with the Galilean and at the same time to ask for reinstatement in the confidence and fellowship of his Judean brethren. This spokesman for Judas went on to explain that Judas recognized it would be best for the peace of Israel if Jesus should be taken into custody, and that, as evidence of his sorrow in having participated in such a movement of error and as proof of his sincerity in now returning to the teachings of Moses, he had come to offer himself to the Sanhedrin as one who could so arrange with the captain holding the orders for Jesus' arrest that he could be taken into custody quietly, thus avoiding any danger of stirring up the multitudes or the necessity of postponing his arrest until after the Passover.

사촌이 말을 다 끝낸 후 **유다**를 소개하자, 그가 대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 사촌이 약속한 것을 기꺼이 하겠지만, 그 대가{代價}로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유다**는, 냉혹하고 자만심 가득한 **가야바**의 얼굴에서, 경멸과 혐오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그의 마음은 자기 영광에 너무 집착했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자 **가야바**가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유다**야, 너는 수비대 대장에게 가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에 네 **주님**을 우리에게 데려올 수 있도록, 그 관원과 함께 협의해라, 그리고 네 도움으로 그가 우리에게 넘겨지면, 너는 이 일에 상당하는 대가{代價}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유다**는 제사장과 관리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왔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성전 수비대 대장과 의논했다. **유다**는 그때 **예수**께서 야영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날 밤 언제쯤 돌아올지는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목요일인) 다음 날 밤, **예루살렘** 사람들 및 방문 중인 순례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예수**를 체포하기로 동의했다.

유다는, 여러 날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위엄과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흥분된 채, 야영지의 동역자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예수**께서 언젠가 새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협조했었다. 그는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새 왕국은 건설되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그러나 그는, 예상했던 새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여 실망한 것을, 옛 체제에서 즉시 얻는 명예 및 보상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현명했던 것을 기뻐했으며, 이제 이 옛 체제가 살아남으리라고 믿었고, **예수**를,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이 옛 체제가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식적인 의도로 발동된 최종 동기를 볼 때, **예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과 옛 동역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전과 영광만 생각하는, 이기적 탈선자의 비열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런 식이었다. **유다**는, 이런 고의적이고, 끈덕지고,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마음 속에 꾸준히 키워왔으며, 원한과 배반의 증오에 찬 악한 욕구를 마음 속에 간직해 왔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유다**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나, **유다**는 그 보답으로 충실한 신뢰와 전심으로 사랑하는 체험을 가꾸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일단 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오랫동안 참아온 음울한 복수심이 크게 발동되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야망이 생겨났는지! 공허하고 순간적인 시간만을 주시함으로써,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의 영원한 세계의 영구적 달성이란, 더 고귀하고 더 실제

177:4.7 (1925.4) When his cousin had finished speaking, he presented Judas, who, stepping forward near the high priest, said: “All that my cousin has promised, I will do, but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for this service?” Judas did not seem to discern the look of disdain and even disgust that came over the face of the hardhearted and vainglorious Caiaphas; his heart was too much set on self-glory and the craving for the satisfaction of self-exaltation.

177:4.8 (1926.1) And then Caiaphas looked down upon the betrayer while he said: “Judas, you go to the captain of the guard and arrange with that officer to bring your Master to us either tonight or tomorrow night, and when he has been delivered by you into our hands, you shall receive your reward for this service.” When Judas heard this, he went forth from the presence of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and took counsel with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s to the manner in which Jesus was to be apprehended. Judas knew that Jesus was then absent from the camp and had no idea when he would return that evening, and so they agreed among themselves to arrest Jesus the next evening (Thursday) after the people of Jerusalem and all of the visiting pilgrims had retired for the night.

177:4.9 (1926.2) Judas returned to his associates at the camp intoxicated with thoughts of grandeur and glory such as he had not had for many a day. He had enlisted with Jesus hoping some day to become a great man in the new kingdom. He at last realized that there was to be no new kingdom such as he had anticipated. But he rejoiced in being so sagacious as to trade off his disappointment in failing to achieve glory in an anticipated new kingdom for the immediate realization of honor and reward in the old order, which he now believed would survive, and which he was certain would destroy Jesus and all that he stood for. In its last motive of conscious intention, Judas's betrayal of Jesus was the cowardly act of a selfish deserter whose only thought was his own safety and glorification, no matter what might be the results of his conduct upon his Master and upon his former associates.

177:4.10 (1926.3) But it was ever just that way. Judas had long been engaged in this deliberate, persistent, selfish, and vengeful consciousness of progressively building up in his mind, and entertaining in his heart, these hateful and evil desires of revenge and disloyalty. Jesus loved and trusted Judas even as he loved and trusted the other apostles, but Judas failed to develop loyal trust and to experience wholehearted love in return. And how dangerous ambition can become when it is once wholly wedded to self-seeking and supremely motivated by sullen and long-suppressed vengeance! What a crushing thing is disappointment in the lives of those foolish

적인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실망스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유다**는 세상적인 명예를 마음 속에 갈망했고, 이 욕구를 점점 더 전심으로 사랑하게 됐으며; 다른 사도들 역시 마음 속에 동일한 세상 명예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그가 자신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최선을 다했다.

유다는, 이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 베임을 당한 후에 계속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비판해 왔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요한**을 살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항상 원망했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게 되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다**가 증오로 옷을 입혀서 자기 혼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이런 인간적 원망과 심한 실망감은, 이제 그의 무의식적인 정신 속에서 잘 조직됐고, 형제들이 옹호하는 영향권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그를 삼켜버릴 준비가 됐으며, 동시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교묘한 암시와 음흉한 조롱에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됐다. 솟구쳐 오른 **유다**의 기대감을 **예수**께서 산산 조각내는 말씀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유다**의 마음 속에는 쓰라린 분노의 상처가 남았으며; 이 상처들이 깊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악하지는 않으나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격자에게, 싫증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실제 애정을 잃어버렸다. **유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유다**는 겁쟁이었다. 따라서, 권세나 영광을 거머쥐기가 이제 손쉽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을 붙잡기를 그토록 종종 거절한 것은, **예수**가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유다**는 늘 **예수**를 탓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모든 필사적 사람은, 사랑이 한때는 진실했더라도, 실망, 질투, 그리고 오랫동안의 분노를 거치게 되면, 결국 실제적인 미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아주 잘 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침내 몇 시간 동안 마음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않아도 됐으며, 그동안에는 **예수**께서 여러 번 자기들 손에서 빠져나갔지만, 배신에 가담하겠다는 **유다**의 약속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5. 마지막 친교 시간

수요일이었으므로, 야영지에서 이 저녁은 친교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풀이 죽은 사도들을 격려하려고 애썼지만, 거의 불가능했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파멸적인 사건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사(多事)했던 지난날과 사랑스러웠던 교제를 **주님**이 상기시켰을 때에

persons who, in fastening their gaze on the shadowy and evanescent allurements of time, become blinded to the higher and more real achievements of the everlasting attainments of the eternal worlds of divine values and true spiritual realities. Judas craved worldly honor in his mind and grew to love this desire with his whole heart; the other apostles likewise craved this same worldly honor in their minds, but with their hearts they loved Jesus and were doing their best to learn to love the truths which he taught them.

177:4.11 (1926.4) Judas did not realize it at this time, but he had been a subconscious critic of Jesus ever since John the Baptist was beheaded by Herod. Deep down in his heart Judas always resented the fact that Jesus did not save John. You should not forget that Judas had been a disciple of John before he became a follower of Jesus. And all these accumulations of human resentment and bitter disappointment which Judas had laid by in his soul in habiliments of hate were now well organized in his subconscious mind and ready to spring up to engulf him when he once dared to separate himself from the supporting influence of his brethren while at the same time exposing himself to the clever insinuations and subtle ridicule of the enemies of Jesus. Every time Judas allowed his hopes to soar high and Jesus would do or say something to dash them to pieces, there was always left in Judas's heart a scar of bitter resentment; and as these scars multiplied, presently that heart, so often wounded, lost all real affection for the one who had inflicted this distasteful experience upon a well-intentioned but cowardly and self-centered personality. Judas did not realize it, but he was a coward. Accordingly was he always inclined to assign to Jesus cowardice as the motive which led him so often to refuse to grasp for power or glory when they were apparently within his easy reach. And every mortal man knows full well how love, even when once genuine, can, through disappointment, jealousy, and long-continued resentment, be eventually turned into actual hate.

177:4.12 (1927.1) At las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could breathe easily for a few hours. They would not have to arrest Jesus in public, and the securing of Judas as a traitorous ally insured that Jesus would not escape from their jurisdiction as he had so many times in the past.

5. THE LAST SOCIAL HOUR

177:5.1 (1927.2) Since it was Wednesday, this evening at the camp was a social hour. The Master endeavored to cheer his downcast apostles, but that was well-nigh impossible. They were all beginning to realize that disconcerting and crushing events were impending. They could not

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도의 가족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했고, **다윗 세베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또는 다른 가족에 대해 혹시 최근에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물어봤다. **다윗**은 고개를 떨궜으며; 대답하기를 두려워했다.

이 시기는, 대중의 지지를 조심하라고 추종자들에게 말씀한 **예수**의 경고에 해당되는 때였다. 그는, 많은 군중이 그들을 열광적으로 따르다가, 격렬하게 대적하면서 이전의 믿음과 삶의 형태로 돌아갔던, **갈릴리**에서 겪은 체험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말씀했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 말을 듣고 우리 교훈을 믿는 것처럼 보이던 많은 인파로 인해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대중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 속에 피상적으로 믿지만, 진리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생명 있는 뿌리를 내리도록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적인 고난이 올 때에는, 복음을 오직 정신으로만 알고 아직 마음 속에 체험하지 못한 그들로부터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유대인** 관리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고, 이구동성으로 공격하게 되면, 대중이 당황해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격노하고 눈이 먼 이 관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동안에, 놀라면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임할 때, 아직도 진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며, 더러는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했던 어떤 자들이 배반하기로 이미 결심했다.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닥쳐 온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휴식을 취했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 내일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야영지의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심부름꾼들이 비밀리에 오가면서 **다윗 세베대**에게만 보고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급히 피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요한 마가는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보냈음에도, 야영지로 돌아온 후 심상치 않게 침묵했다. 여러 방법으로 말을 시키려 했지만,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명히 대답할 뿐이었다.

주님의 유쾌한 기분과 평상시와는 다른 친근함마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모두, 무시무시하게 고립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확실히 느꼈다. 그들은 무엇이 벌어질지 잘 감지하지 못했으며, 시침을 맞을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무척 보고 싶어 했었다.

be cheerful, even when the Master recounted their years of eventful and loving association. Jesus made careful inquiry about the families of all of the apostles and, looking over toward David Zebedee, asked if anyone had heard recently from his mother, his youngest sister, or other members of his family. David looked down at his feet; he was afraid to answer.

177:5.2 (1927.3) This was the occasion of Jesus' warning his followers to beware of the support of the multitude. He recounted their experiences in Galilee when time and again great throngs of people enthusiastically followed them around and then just as ardently turned against them and returned to their former ways of believing and living. And then he said: "And so you must not allow yourselves to be deceived by the great crowds who heard us in the temple, and who seemed to believe our teachings. These multitudes listen to the truth and believe it superficially with their minds, but few of them permit the word of truth to strike down into the heart with living roots. Those who know the gospel only in the mind, and who have not experienced it in the heart, cannot be depended upon for support when real trouble comes. When the rulers of the Jews reach an agreement to destroy the Son of Man, and when they strike with one accord, you will see the multitude either flee in dismay or else stand by in silent amazement while these maddened and blinded rulers lead the teachers of the gospel truth to their death. And then, when adversity and persecution descend upon you, still others who you think love the truth will be scattered, and some will renounce the gospel and desert you. Some who have been very close to us have already made up their minds to desert. You have rested today in preparation for those times which are now upon us. Watch, therefore, and pray that on the morrow you may be strengthened for the days that are just ahead."

177:5.3 (1927.4) The atmosphere of the camp was charged with an inexplicable tension. Silent messengers came and went, communicating with only David Zebedee. Before the evening had passed, certain ones knew that Lazarus had taken hasty flight from Bethany. John Mark was ominously silent after returning to camp, notwithstanding he had spent the whole day in the Master's company. Every effort to persuade him to talk only indicated clearly that Jesus had told him not to talk.

177:5.4 (1928.1) Even the Master's good cheer and his unusual sociability frightened them. They all felt the certain drawing upon them of the terrible isolation which they realized was about to descend with crashing suddenness and inescapable terror. They vaguely sensed what was coming, and none felt prepared to face the test. The Master had been away all day; they had missed him tremendously.

이 수요일 저녁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님**의 죽음이 이뤄진 실제적인 그 시간까지 계속 그랬다. 비극적인 금요일까지 하루밖에는 더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불안한 시간을 비교적 더 은혜롭게 보내고 있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가족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도록 그들을 흩어 보내면서, “형제들아, 가서 잠자도록 해라. 내일 일어날 때까지 평안하거라. **아버지**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아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남았다”고 말씀한 것은, 자정이 거의 됐을 때였다.

177:5.5 (1928.2) This Wednesday evening was the low-tide mark of their spiritual status up to the actual hour of the Master's death. Although the next day was one more day nearer the tragic Friday, still, he was with them, and they passed through its anxious hours more gracefully.

177:5.6 (1928.3) It was just before midnight when Jesus, knowing this would be the last night he would ever sleep through with his chosen family on earth, said, as he dispersed them for the night: “Go to your sleep, my brethren, and peace be upon you till we rise on the morrow, one more day to do the Father's will and experience the joy of knowing that we are his sons.”

제178편. 야영지에서 마지막 날

⇨ 177

유랜시아 책

179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78편
야영지에서 마지막 날

섹션

소개

1. 아들신분과 시민신분에 관한 강론
2. 점심을 먹은 후
3.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PAPER 178
LAST DAY AT THE CAMP

SECTIONS

Introduction

1. Discourse on Sonship and Citizenship
2. After the Noontime Meal
3. On the Way to the Supper

소개

육체를 입고 육신화한 신성한 **아들**로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 목요일을, 사도들 및 충성되고 헌신된 소수의 제자와 함께 보내려고 계획했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에 식사시간이 끝나자, **주님**은 곧 야영지로부터 약간 위에 있는 외딴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고, 새로운 많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날 이른 저녁 시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다른 강론을 했지만, 목요일 오전에 했던 이 말씀은, 야영지에 머무는 사도들 및 선택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무리에게 한 작별 인사말이었다. 열두 사도는 **유다**를 제외하고 다 참석했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사도는 그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마 다가오는 **유월절** 경축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성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베풀기 위해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인, 오후 중반이 돼서야 야영지로 돌아왔다.

INTRODUCTION

178:0.1 (1929.1) JESUS planned to spend this Thursday, his last free day on earth as a divine Son incarnated in the flesh, with his apostles and a few loyal and devoted disciples. Soon after the breakfast hour on this beautiful morning, the Master led them to a secluded spot a short distance above their camp and there taught them many new truths. Although Jesus delivered other discourses to the apostles during the early evening hours of the day, this talk of Thursday forenoon was his farewell address to the combined camp group of apostles and chosen disciples, both Jews and gentiles. The twelve were all present save Judas. Peter and several of the apostles remarked about his absence, and some of them thought Jesus had sent him into the city to attend to some matter, probably to arrange the details of their forthcoming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udas did not return to the camp until midafternoon, a short time before Jesus led the twelve into Jerusalem to partake of the Last Supper.

1. 아들신분과 시민신분에 관한 강론

예수께서는 믿을만한 추종자 가운데 약 50명에게 거의 두 시간 동안 말씀했고, 하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즉 **하나님**의 아들신

1. DISCOURSE ON SONSHIP AND
CITIZENSHIP

178:1.1 (1929.2) Jesus talked to about fifty of his trusted followers for almost two hours and answered a score of questions regarding the

분과 이 세상 정부의 시민신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때 했던 그의 강론을, 현대 언어로 다시 간추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 나라들은 물질적이므로, 법을 집행하는 데,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종종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늘 나라에서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늘 나라는,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관계이므로, 오직 영의 힘으로만 퍼져 나가게 된다. 이런 진행상 차이점은, 신자{信者}들의 천국이 세속 정부의 나라들에 대해 갖는 관계와 관련되며,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과, 제멋대로 부당하게 행동하는 회원을 징계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영적 천국에서 아들신분과, 세속 정부, 즉 민간{民間} 정부에서 시민으로서의 신분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특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상의 경배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요구 사이에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너희는, 잘못된 이 세상 지배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 지배자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너희가 영적 천국의 사명을 확장시키려고 일하는 동안, 세상 정부의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 그 통치자들도 언젠가 신자로서 동참하게 될지도 모른다.

형제관계와 봉사가 천국 복음의 모퉁이들이기 때문에, 진보하는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아들신분은, 너희를 이 세상 나라의 이상적 시민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영적{靈的} 천국이 우호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믿지 않고 투쟁에 몰두하는 세상 나라 시민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도구임을 입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 없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_성향의 이 자녀는, 너희가 소유한 진리의 영적 빛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인데, 그런 사회봉사는, 믿는 자들이 각자 삶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영의 열매다.

너희는 물질적인 필사적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 나라의 영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 개화되고 영이_해방된 하늘 나라 자녀로서, 사람에 대해 그

rel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o the kingdoms of this world, concerning the relation of sonship with God to citizenship in earthly governments. This discourse, together with his answers to questions, may be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language as follows:

178:1.2 (1929.3) The kingdoms of this world, being material, may often find it necessary to employ physical force in the execution of their laws and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In the kingdom of heaven true believers will not resort to the employment of physical force. The kingdom of heaven, being a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pirit-born sons of God, may be promulgated only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is distinction of procedure refers to the relations of the kingdom of believers to the kingdoms of secular government and does not nullify the right of social groups of believers to maintain order in their ranks and administer discipline upon unruly and unworthy members.

178:1.3 (1929.4) There is nothing incompatible between sonship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citizenship in the secular or civil government. It is the believer's duty to render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There cannot be any disagreement between these two requirements, the one being material and the other spiritual, unless it should develop that a Caesar presumes to usurp the prerogatives of God and demand that spiritual homage and supreme worship be rendered to him. In such a case you shall worship only God while you seek to enlighten such misguided earthly rulers and in this way lead them also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 in heaven. You shall not render spiritual worship to earthly rulers; neither should you employ the physical forces of earthly governments, whose rulers may sometime become believers, in the work of furthering the mission of the spiritual kingdom.

178:1.4 (1930.1) Sonship in the kingdom, from the standpoint of advancing civilization, should assist you in becoming the ideal citizens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since brotherhood and service are the cornerston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love call of the spiritual kingdom should prove to be the effective destroyer of the hate urge of the unbelieving and war-minded citizens of the earthly kingdoms. But these material-minded sons in darkness will never know of your spiritual light of truth unless you draw very near them with that unselfish social service which is the natural outgrowth of the bearing of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life experience of each individual believer.

178:1.5 (1930.2) As mortal and material men, you are indeed citizens of the earthly kingdoms, and you should be good citizens, all the better for having become reborn spirit sons of the heavenly kingdom. As faith-enlightened and spirit-liberated

리고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이중적 의무에 직면하는 동시에, 제 3의 신성시되는 책무: 즉 **하나님**을_아는 신자 형제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다.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천국의 축진을 위해 현세의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사랑의 봉사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천국 복음에는 강력한 **진리의 영**이 내주하며, 바로 이 영을 내가 곧 모든 육체에 부여줄 것이다. 영의 열매, 즉 너희의 진지하고 사랑하는 봉사가, 어두움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이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의 능력을_배가시키는 지레 받침이 될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않는 집권자들과 대면할 때 지혜를 보이고 충명함을 나타내라. 사소한 논쟁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를 조정하기에 스스로 노련해지고 있음을 신중하게 증명하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곧 우주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해롭지 않아야 한다.

천국의 개화된 자녀가 된 결과로, 너희는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이 돼야 하며;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국가적 문제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돼야 할 것이다. 이기심 없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충명한 경배가, 모든 천국 신자를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하늘 나라의 아들신분으로 초대하는 영 소명{召命}이 더 잘 들리도록, 그런 시민을 도와줘야 한다.

세상 정부 통치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추구하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는 고난, 박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 너희가 천국의 이 복음을 위해 수난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가, 결국 온 세계를 개화시키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면, 언젠가는 새롭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자유함, 지적 해방, 및 종교적 자유를 모든 나라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과 자유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곧_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고 천국은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이 있는 시절에도 천국에

sons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face a double responsibility of duty to man and duty to God while you voluntarily assume a third and sacred obligation: service to the brotherhood of God-knowing believers.

178:1.6 (1930.3) You may not worship your temporal rulers, and you should not employ temporal power in the furtherance of the spiritual kingdom; but you should manifest the righteous ministry of loving service to believers and unbelievers alik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re resides the mighty Spirit of Truth, and presently I will pour out this same spirit upon all flesh. The fruits of the spirit, your sincere and loving service, are the mighty social lever to uplift the races of darkness, and this Spirit of Truth will become your power-multiplying fulcrum.

178:1.7 (1930.4) Display wisdom and exhibit sagacity in your dealings with unbelieving civil rulers. By discretion show yourselves to be expert in ironing out minor disagreements and in adjusting trifling misunderstandings. In every possible way — in everything short of your spiritual allegiance to the rulers of the universe — seek to live peaceably with all men. Be you always as wise as serpents but as harmless as doves.

178:1.8 (1930.5) You should be made all the better citizens of the secular government as a result of becoming enlightened sons of the kingdom; so should the rulers of earthly governments become all the better rulers in civil affairs as a result of believing this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The attitude of unselfish service of man and intelligent worship of God should make all kingdom believers better world citizens, while the attitude of honest citizenship and sincere devotion to one's temporal duty should help to make such a citizen the more easily reached by the spirit call to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178:1.9 (1930.6) So long as the rulers of earthly governments seek to exercise the authority of religious dictators, you who believe this gospel can expect only trouble, persecution, and even death. But the very light which you bear to the world, and even the very manner in which you will suffer and die for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in themselves, eventually enlighten the whole world and result in the gradual divorcement of politics and religion. The persistent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some day bring to all nations a new and unbelievable liberation, intellectual freedom, and religious liberty.

178:1.10 (1931.1) Under the soon-coming persecutions by those who hate this gospel of joy and liberty, you will thrive and the kingdom will prosper. But you will stand in grave danger in subsequent times when most men will speak well of kingdom believers and many in high places nominally accept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Learn

충실하기를 배워라. 안일함에 젖은 너희 혼을 구원하려고 고안된,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친 길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을 유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 천국 복음--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신앙 실현이라는 최고의 기쁨과 결부된,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소망--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보살핌, 깨우쳐 주는 지적 친교, 그리고 향상시키는 사회 봉사에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되; 이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 전부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대한 봉사는, 더 강력하고 탁월한 보살핌과 변화됨에서 나오는 사회적 부산물인데, 이 보살핌과 변화됨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 인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있음을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확인시켜주는 개인적 깨달음으로 인해, 천국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으로, 또는 세속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려 하거나 정의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의 정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나, 그들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이라는 대계명(大敎命)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국을 믿는 자가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 받을 때, 그런 정부에 소속된 현세의 시민으로서 이런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되, 그렇더라도 그 신자는 나라에 봉사하면서, 필사적 사람의 정신을 기품 있도록 만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이 연합하여 얻는 영적 개화로 인하여 증진된, 시민신분의 그런 모든 평범한 특징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 믿지 않는 자가 높은 지위의 시민정부 공무원이 될 자격을 갖추 수 있다면, 영적 친교와 사회 봉사, 이 두 가지의 생명의 물이 부족해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희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 인격의 모든 타고난 능력을 복돋우는, 그런 힘찬 충동을 소유하게 된 모든 어른과 아이가 일생 동안 봉사할 때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너희는, 피동적 신비주의자나 생기 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에서조차 허구적인 **섭리**를 나태하게 의지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돼서도 안 된다. 너희는, 잘못된 필사자를 대할 때 정말로 느그러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과 교제할 때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하지만; 정의를 지킬 때에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는 강해야

to be faithful to the kingdom even in times of peace and prosperity. Tempt not the angels of your supervision to lead you in troublous ways as a loving discipline designed to save your ease-drifting souls.

178:1.11 (1931.2) Remember that you are commissioned to preach this gospel of the kingdom — the supreme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coupled with the supreme joy of the faith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 and you must not allow anything to divert your devotion to this one duty. Let all mankind benefit from the overflow of your loving spiritual ministry, enlightening intellectual communion, and uplifting social service; but none of these humanitarian labors, nor all of them, should be permitted to take the place of proclaiming the gospel. These mighty ministrations are the social by-products of the still more mighty and sublime ministrations and transformations wrought in the heart of the kingdom believer by the living Spirit of Truth and by the personal realization that the faith of a spirit-born man confers the assurance of living fellowship with the eternal God.

178:1.12 (1931.3) You must not seek to promulgate truth nor to establish righteousness by the power of civil governments or by the enactment of secular laws. You may always labor to persuade men's minds, but you must never dare to compel them. You must not forget the great law of human fairness which I have taught you in positive form: Whatsoever you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even so to them.

178:1.13 (1931.4) When a kingdom believer is called upon to serve the civil government, let him render such service as a temporal citizen of such a government, albeit such a believer should display in his civil service all of the ordinary traits of citizenship as these have been enhanced by the spiritual enlightenment of the ennobling association of the mind of mortal man with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eternal God. If the unbeliever can qualify as a superior civil servant, you should seriously question whether the roots of truth in your heart have not died from the lack of the living waters of combined spiritual communion and social service. The consciousness of sonship with God should quicken the entire life service of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 has become the possessor of such a mighty stimulus to all the inherent powers of a human personality.

178:1.14 (1931.5) You are not to be passive mystics or colorless ascetics; you should not become dreamers and drifters, supinely trusting in a fictitious Providence to provide even the necessities of life. You are indeed to be gentle in your dealings with erring mortals, patient in your intercourse with ignorant men, and forbearing under provocation; but you are also to be valiant in

하며, 땅 끝까지 이르도록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그 복음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 같고, 겨자 씨 낱알 같으며; 이제 내가 단언하겠는데, 그 복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씨와 같아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똑같은 살아있는 씨로 남아 있고, 계속되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조건과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경로에서, 어김없이 새롭게 형태화되고 훌륭하게 자라간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온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영적 성장과 증대 그리고 만족스런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각 세대마다 그리고 각 개체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란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 복음은 틀림없이 향상된 생명력을 보일 것이며, 더 깊은 영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단지, 신성시되는 추억, 즉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의 권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했을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해 그들이 영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것을 경고함으로써만 그들을 비난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기존의 지도자들과 공인된 지배자들이 직접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비난하는 자는 우리가 아닌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는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만 위임받았음을 명심해라. 옛 방식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전통적 믿음 한 가운데에 기술적으로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용납하라. 그들이 진리를 경멸할 때에만 논쟁하도록 해라. 그러나 고의로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는, 너희를 구원하고 성화(聖化)시킨 그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하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변화무쌍한 생애를 사는 동안 내내, 서로 사랑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과, 심지어 불신자와도 다투지 말라. 악의에 가득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형제관계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런 시민, 정직한 직공,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 동료, 이해심 많은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나타내라. 또한 내 영이 지금은 물론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마쳤을 때는 거의 한 시 무렵이었으며, 그들은 **다윗**과 그 동역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해 놓은 야영지로 곧 돌아

defense of righteousness, mighty in the promulgation of truth, and aggressive in the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178:1.15 (1931.6) This gospel of the kingdom is a living truth. I have told you it is like the leaven in the dough, like the grain of mustard seed; and now I declare that it is like the seed of the living being, whic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ile it remains the same living seed, unfailingly unfolds itself in new manifestations and grows acceptably in channels of new adaptation to the peculiar needs and conditions of each successive generation. The revelation I have made to you is a *living revelation*, and I desire that it shall bear appropriate fruits in each individual and in each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piritual growth, increase, and adaptative developm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gospel must show increasing vitality and exhibit greater depth of spiritual power. It must not be permitted to become merely a sacred memory, a mere tradition about me and the times in which we now live.

178:1.16 (1932.1) And forget not: We have made no direct attack upon the persons or upon the authority of those who sit in Moses' seat; we only offered them the new light, which they have so vigorously rejected. We have assailed them only by the denunciation of their spiritual disloyalty to the very truths which they profess to teach and safeguard. We clashed with these established leaders and recognized rulers only when they threw themselves directly in the way of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sons of men. And even now, it is not we who assail them, but they who seek our destruction. Do not forget that you are commissioned to go forth preaching only the good news. You are not to attack the old ways; you are skillfully to put the leaven of new truth in the midst of the old beliefs. Let the Spirit of Truth do his own work. Let controversy come only when they who despise the truth force it upon you. But when the willful unbeliever attacks you, do not hesitate to stand in vigorous defense of the truth which has saved and sanctified you.

178:1.17 (1932.2) Throughout the vicissitudes of life, remember always to love one another. Do not strive with men, even with unbelievers. Show mercy even to those who spitefully abuse you. Show yourselves to be loyal citizens, upright artisans, praiseworthy neighbors, devoted kinsmen, understanding parents, and sincere believers in the brotherhood of the Father's kingdom. And my spirit shall be upon you, now and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178:1.18 (1932.3) When Jesus had concluded his teaching, it was almost one o'clock, and they immediately went back to the camp, where David

왔다.

and his associates had lunch ready for them.

2. 점심을 먹은 후

오전에 주어진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중들 중에서 **그리스인**은 대부분의 말씀을 납득했다. 열한 명의 사도마저, 미래의 정치적 나라들 및 이어지는 세대들의 천국 신자에 대한 **주님**의 암시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이 세상 사역의 종료가 임박한 것과, 장래의 복음 활동에 대한 이 말씀을 서로 조화시킬 수 없었다. **유대인** 신자 가운데서 더러는,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임박한 재난과, **주님**의 변함없는 유쾌한 태도 또는 그의 오전 강론을,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 강론에서 **주님**은, 아주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리고 땅에서 뒤이어 생기는 수많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하늘 나라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나사르가 황급히 **베다니**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모든 사도는 이날 정오에 알게 됐다. 그들은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와 그의 교훈을 멸절시켜버리기로 냉혹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요원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 세베대**는,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는 계획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았다. 그는 이 음모에서 **유다**의 역할을 전부 알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도들뿐 아니라, 어떤 제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그는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지 대담하게 질문했다--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이 계속되지 못하게 막았다. **주님**은 그의 팔을 붙잡고 질문을 제지하면서 말씀했다: "**다윗**아 그렇다, 나는 그것을 다 알고,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도 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드러나리라는 것을 마음 속에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아브넬**이 들었다는 것과,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말을 전하려고, **필라델피아**로부터 한 심부름꾼이 도착했으므로, **다윗**과 나누던 이 대화는 더 계속되지 못했다. 이 심부름꾼은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출발했다: "네 일을 계속하라. 내가 너와 육신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무렵에 **빌립**이 **주님**께 와서 물었다: "**주님**, **유월절**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어디에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했다: "가서 **베드로**와

2. AFTER THE NOONTIME MEAL

178:2.1 (1932.4) Not many of the Master's hearers were able to take in even a part of his forenoon address. Of all who heard him, the Greeks comprehended most. Even the eleven apostles were bewildered by his allusions to future political kingdoms and to successive generations of kingdom believers. Jesus' most devoted followers could not reconcile the impending end of his earthly ministry with these references to an extended future of gospel activities. Some of these Jewish believers were beginning to sense that earth's greatest tragedy was about to take place, but they could not reconcile such an impending disaster with either the Master's cheerfully indifferent personal attitude or his forenoon discourse, wherein he repeatedly alluded to the future transactions of the heavenly kingdom, extending over vast stretches of time and embracing relations with many and successive temporal kingdoms on earth.

178:2.2 (1932.5) By noon of this day all the apostles and disciples had learned about the hasty flight of Lazarus from Bethany. They began to sense the grim determination of the Jewish rulers to exterminate Jesus and his teachings.

178:2.3 (1932.6) David Zebedee, through the work of his secret agents in Jerusalem, was fully advised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plan to arrest and kill Jesus. He knew all about the part of Judas in this plot, but he never disclosed this knowledge to the other apostles nor to any of the disciples. Shortly after lunch he did lead Jesus aside and, making bold, asked him whether he knew — but he never got further with his question. The Master, holding up his hand, stopped him, saying: "Yes, David, I know all about it, and I know that you know, but see to it that you tell no man. Only doubt not in your own heart that the will of God will prevail in the end."

178:2.4 (1933.1) This conversation with David was interrupted by the arrival of a messenger from Philadelphia bringing word that Abner had heard of the plot to kill Jesus and asking if he should depart for Jerusalem. This runner hastened off for Philadelphia with this word for Abner: "Go on with your work. If I depart from you in the flesh, it is only that I may return in the spirit. I will not forsake you.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178:2.5 (1933.2) About this time Philip came to the Master and asked: "Master, seeing that the time of the Passover draws near, where would you have us prepare to eat it?" And when Jesus heard

요한을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먹을 만찬에 대하여 네게 지시하겠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네가 먼저 이 일을 마친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이 일에 대해 **빌립**과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다**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빌립**, **베드로**, 및 **요한**이 다른 편으로 가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가까이 서 있던 **다윗 세베대**가 **유다**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다.

예수께서 세 사도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면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거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이 사도들과 만찬을 드실 손님 접대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봐라.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준비된, 넓은 다락방을 그 집주인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도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성 문 근처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뒤를 쫓아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여줬다.

이 모든 일은, 전날 오후에 **주님**과 **요한 마가**가 따로 언덕에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의 결과로 일어나게 됐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으며, **유다**가 그들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게 되면, 자신을 체포하도록 적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요한 마가**와 비밀리에 약속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도, **유다**는 그들의 만날 장소를 알지 못했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베드로**, **요한**, 및 **빌립**을 **유다**가 무척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양식을 구입하라고, **유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다윗**에게 건네주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유다**여, 이런 상황에서 내게 실제로 필요한 돈을 미리 내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닌가?” **유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다윗**아,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불안한 상황에 비춰 본다면, 돈을 전부 네게 넘겨주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는 아무 해방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전부와 저축된 모든 예금증서를 받았다. 사도들은 다음 날 저

Philip's question, he answered: “Go and bring Peter and John, and I will give you directions concerning the supper we will eat together this night. As for the Passover, that you will have to consider after we have first done this.”

178:2.6 (1933.3) When Judas heard the Master speaking with Philip about these matters, he drew closer that he might overhear their conversation. But David Zebedee, who was standing near, stepped up and engaged Judas in conversation while Philip, Peter, and John went to one side to talk with the Master.

178:2.7 (1933.4) Said Jesus to the three: “Go immediately into Jerusalem, and as you enter the gate, you will meet a man bearing a water pitcher. He will speak to you, and then shall you follow him. When he leads you to a certain house, go in after him and ask of the good man of that house, ‘Where is the guest chamber wherein the Master is to eat supper with his apostles?’ And when you have thus inquired, this householder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all furnished and ready for us.”

178:2.8 (1933.5) When the apostles reached the city, they met the man with the water pitcher near the gate and followed on after him to the home of John Mark, where the lad's father met them and showed them the upper room in readiness for the evening meal.

178:2.9 (1933.6) And all of this came to pass as the result of an understanding arrived at between the Master and John Mark during the afternoon of the preceding day when they were alone in the hills. Jesus wanted to be sure he would have this one last meal undisturbed with his apostles, and believing if Judas knew beforehand of their place of meeting he might arrange with his enemies to take him, he made this secret arrangement with John Mark. In this way Judas did not learn of their place of meeting until later on when he arrived there in company with Jesus and the other apostles.

178:2.10 (1933.7) David Zebedee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with Judas so that he was easily prevented from following Peter, John, and Philip, as he so much desired to do. When Judas gave David a certain sum of money for provisions, David said to him: “Judas, might it not be well,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ovide me with a little money in advance of my actual needs?” And after Judas had reflected for a moment, he answered: “Yes, David, I think it would be wise. In fact, in view of the disturbed conditions in Jerusalem, I think it would be best for me to turn over all the money to you. They plot against the Master, and in case anything should happen to me, you would not be hampered.”

178:2.11 (1934.1) And so David received all the apostolic cash funds and receipts for all money on

년까지도 이런 진행사항을 알지 못했다.

세 사도가 돌아와서,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음을 예수께 고한 것은 네 시 반쯤이었다. 오솔길을 넘어서 베다니 길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열두 사도를 인도하려고 즉시 준비했다. 이것이, 그가 열두 사도 전체와 함께 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3.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는,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며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는 인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으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기 위해, 감람산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다. 예수께서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근처를 지나갈 때, 그들은 무의식중에 멈춰 서서 조용히 성을 내려다봤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고, 예수께서는 해가 진 후에 성으로 들어가기 원했으므로, 동역자들에게 말씀했다:

“반드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앉아서 쉬도록 해라.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너희와 형제로 지냈으며, 하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고 그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내 사명과 관련하여 정말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체험에 동참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업무로 내가 곧 돌아가야 함을 너희에게 한동안 경고했던 것에 대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며; 천국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가버나움의 동산에서 너희와 헤어졌던 것은 그런 목적에서였다. 너희가 나와 함께했던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대변하고 내가 시작한 일들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가 슬픔에 가득차서 성을 내려다보는데,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성의 파멸에 휩쓸려서 너희가 죽게 되어, 그로 인해 천국 복음의 선포가 연기되서는 안 된다고,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의 아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나서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는 가야하지만, 심지어 나사로에게도 사람의 징벌을 피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너희가 신의 계획을 한 치도

deposit. Not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did the apostles learn of this transaction.

178:2.12 (1934.2) It was about half past four o'clock when the three apostles returned and informed Jesus that everything was in readiness for the supper. The Master immediately prepared to lead his twelve apostles over the trail to the Bethany road and on into Jerusalem. And this was the last journey he ever made with all twelve of them.

3. ON THE WAY TO THE SUPPER

178:3.1 (1934.3) Seeking again to avoid the crowds passing through the Kidron valley back and forth between Gethsemane Park and Jerusalem, Jesus and the twelve walked over the western brow of Mount Olivet to meet the road leading from Bethany down to the city. As they drew near the place where Jesus had tarried the previous evening to discourse o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y unconsciously paused while they stood and looked down in silence upon the city. As they were a little early, and since Jesus did not wish to pass through the city until after sunset, he said to his associates:

178:3.2 (1934.4) “Sit down and rest yourselves while I talk with you about what must shortly come to pass. All these years have I lived with you as brethren, and I have taught you the truth concerning the kingdom of heaven and have revealed to you the mysteries thereof. And my Father has indeed done many wonderful works in connection with my mission on earth. You have been witnesses of all this and partakers in the experience of being laborers together with God. And you will bear me witness that I have for some time warned you that I must presently return to the work the Father has given me to do; I have plainly told you that I must leave you in the world to carry on the work of the kingdom.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set you apart, in the hills of Capernaum. The experience you have had with me, you must now make ready to share with others.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so am I about to send you forth to represent me and finish the work I have begun.

178:3.3 (1934.5) “You look down on yonder city in sorrow, for you have heard my words telling of the end of Jerusalem. I have forewarned you lest you should perish in her destruction and so delay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Likewise do I warn you to take heed lest you needlessly expose yourselves to peril when they come to take the Son of Man. I must go, but you are to remain to witness to this gospel when I have gone, even as I directed that Lazarus flee from the wrath of man that he might live to make known the glory of God. If it is the Father’s will that I depart, nothing you may do can frustrate the divine plan.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혼이 영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어리석은 시도든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며;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내 곁에 있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이 성이 훼파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영원히 진보하는 하늘 나라, 심지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에는 거주지가 많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都城)들과, 진리 안에서 정의와 기쁨을 생활 습성으로 삼는 세계들이 드러나기를, 빛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 나라가 임하도록 했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신앙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진리를 생생하게 돌봄으로 거기에 머무는 너희 모두는, 반드시 높은 곳에 있는 세계들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靈) 나라에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스스로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했던 그 일을 마쳐야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며 --이 시험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내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일어나자,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감람산**을 내려가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한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파가 그들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선택된 천국 대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필사자 회합을 가지러 지나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사도들 역시,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주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한 마가는 성으로 내려가는 길을 처음부터 따라왔으며,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 일행이 도착할 때 아버지 집 앞에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they kill you also. Let your souls be valiant in defense of the gospel by spirit power but be not misled into any foolish attempt to defend the Son of Man. I need no defense by the hand of man; the armies of heaven are even now near at hand; but I am determine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and therefore must we submit to that which is so soon to come upon us.

178:3.4 (1934.6) “When you see this city destroyed, forget not that you have entered already upon the eternal life of endless service in the ever-advancing kingdom of heaven, even of the heaven of heavens. You should know that in my Father’s universe and in mine are many abodes, and that there awaits the children of light the revelation of cities whose builder is God and worlds whose habit of life is righteousness and joy in the truth. I have brought the kingdom of heaven to you here on earth, but I declare that all of you who by faith enter therein and remain therein by the living service of truth, shall surely ascend to the worlds on high and sit with me in the spirit kingdom of our Father. But first must you gird yourselves and complete the work which you have begun with me. You must first pass through much tribulation and endure many sorrows — and these trials are even now upon us — and when you have finished your work on earth, you shall come to my joy, even as I have finished my Father’s work on earth and am about to return to his embrace.”

178:3.5 (1935.1) When the Master had spoken, he arose, and they all followed him down Olivet and into the city. None of the apostles, save three, knew where they were going as they made their way along the narrow streets in the approaching darkness. The crowds jostled them, but no one recognized them nor knew that the Son of God was passing by on his way to the last mortal rendezvous with his chosen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neither did the apostles know that one of their own number had already entered into a conspiracy to betray the Master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178:3.6 (1935.2) John Mark had followed them all the way into the city, and after they had entered the gate, he hurried on by another street so that he was waiting to welcome them to his father’s home when they arrived.

제 179편. 마지막 만찬

⇨ 178

유랜시아 책

180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79편
마지막 만찬

섹션

소개

1. 대접받고 싶은 욕망
2. 만찬을 시작함
3. 사도의 발을 씻으심
4. 배반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5. 기념 만찬을 제정하심

소개

이 목요일 오후에, 다가오는 **유월절**에 관해 **주님**께 상기시키면서,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한 그의 계획에 대해 **빌립**이 물어봤을 때, 그는 이튿날 금요일 저녁에 먹도록 돼있는 **유월절**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유월절** 경축 준비를 전날 정오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유대인**은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계산했으므로, 이것은 금요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어느 때에, 토요일의 **유월절** 만찬을 먹게 돼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하루 먼저 경축할 것이라는 **주님**의 발표를, 사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가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 전에 체포될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나누기 위해 자신들을 함께 불렀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통상적인 **유월절** 경축에 앞서서 이뤄지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지난 여러 차례의 **유월절**에 어린양을 잡지 않고 경축했던 것을 알았으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유대** 방식의 예배에는 그

PAPER 179
THE LAST SUPPE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sire for Preference
2. Beginning the Supper
3. Washing the Apostles' Feet
4. Last Words to the Betrayer
5. Establishing the Remembrance Supper

INTRODUCTION

179:0.1 (1936.1) DURING the afternoon of this Thursday, when Philip reminded the Master about the approaching Passover and inquired concerning his plans for its celebration, he had in mind the Passover supper which was due to be eaten on the evening of the next day, Friday. It was the custom to begin the preparations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not later than noon of the preceding day. And since the Jews reckoned the day as beginning at sunset, this meant that Saturday's Passover supper would be eaten on Friday night, sometime before the midnight hour.

179:0.2 (1936.2) The apostles were, therefore, entirely at a loss to understand the Master's announcement that they would celebrate the Passover one day early. They thought, at least some of them did, that he knew he would be placed under arrest before the time of the Passover supper on Friday night and was therefore calling them together for a special supper on this Thursday evening. Others thought that this was merely a special occasion which was to precede the regular Passover celebration.

179:0.3 (1936.3) The apostles knew that Jesus had celebrated other Passovers without the lamb; they knew that he did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any sacrificial service of the Jewish system. He had

가 한 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주최할 때에는 양고기를 대접하지 않았다. **유월절** 어린양이 생략되더라도 사도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이 만찬이 하루 일찍 베풀어졌기 때문에 양고기 없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요한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네는 환영 인사를 받은 후에, 사도들은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마가**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뒤에 남았다.

이 절기를 오직 열두 사도와 경축하려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중들기 위해 기다리는 종은 예비되지 않았다.

1. 대접받고 싶은 욕망

요한 마가가 사도들을 2층으로 안내했을 때, 그들은 매우 크고 넓은 방을 보게 됐고, 만찬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며, 빵, 포도주,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이 식탁 한 쪽 끝에 모두 준비돼 있었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 쪽을 제외한 긴 식탁 둘레에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열세 개의 의자가 배열돼 있었다.

열두 사도가 이 다락방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문 안에 놓여 있는 물 항아리, 대야, 그리고 수건이, 자신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준비된 것을 알았으며; 이 일에 수종들 종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사도들은 **요한 마가**가 떠나자마자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발을 씻어줄 것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중처럼 보이도록 행동할 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똑같이 생각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속으로 다투면서 식탁의 자리 배치를 둘러봤으며, 주빈을 위한 비교적 높은 침대 의자 하나와, 그 오른쪽에 다른 한 개의 의자가 있고, 나머지 열한 개의 의자들이 왼쪽부터 위치하여, 주빈석(主賓席) 오른쪽에 있는 둘째 우등석(優等席) 맞은 편까지 배열돼 있음을 알게 됐다.

그들은 **주님**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먼저 앉아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그가 자리를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주빈석 왼편에 있는 우등석으로 다가갔고, 마치 우선권 있는 손님이라도 되듯이 거기에 기대어 누우려고 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즉시 다른 사도들 가운데 흥분된 다툼을 일으켰다. **유다**가 우등석을 차지하자마자, **요한 세베데**는 주빈석 오른쪽에 있는 그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시몬 베드로**는, **유다**와 **요한**의 이와 같은 자리 선택

many times partaken of the paschal lamb as a guest, but always, when he was the host, no lamb was served. It would not have been a great surprise to the apostles to have seen the lamb omitted even on Passover night, and since this supper was given one day earlier, they thought nothing of its absence.

179:0.4 (1936.4) After receiving the greetings of welcome extended by the father and mother of John Mark, the apostles went immediately to the upper chamber while Jesus lingered behind to talk with the Mark family.

179:0.5 (1936.5) It had been understood beforehand that the Master was to celebrate this occasion alone with his twelve apostles; therefore no servants were provided to wait upon them.

1. THE DESIRE FOR PREFERENCE

179:1.1 (1936.6) When the apostles had been shown upstairs by John Mark, they beheld a large and commodious chamber, which was completely furnished for the supper, and observed that the bread, wine, water, and herbs were all in readiness on one end of the table. Except for the end on which rested the bread and wine, this long table was surrounded by thirteen reclining couches, just such as would be provided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in a well-to-do Jewish household.

179:1.2 (1936.7) As the twelve entered this upper chamber, they noticed, just inside the door, the pitchers of water, the basins, and towels for laving their dusty feet; and since no servant had been provided to render this service, the apostles began to look at one another as soon as John Mark had left them, and each began to think within himself, Who shall wash our feet? And each likewise thought that it would not be he who would thus seem to act as the servant of the others.

179:1.3 (1937.1) As they stood there, debating in their hearts, they surveyed the seating arrangement of the table, taking note of the higher divan of the host with one couch on the right and eleven arranged around the table on up to opposite this second seat of honor on the host's right.

179:1.4 (1937.2) They expected the Master to arrive any moment, but they were in a quandary as to whether they should seat themselves or await his coming and depend on him to assign them their places. While they hesitated, Judas stepped over to the seat of honor, at the left of the host, and signified that he intended there to recline as the preferred guest. This act of Judas immediately stirred up a heated dispute among the other apostles. Judas had no sooner seized the seat of honor than John Zebedee laid claim to the next

에 매우 분이 치밀어서, 화가 난 다른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탁을 두벽두벽 걸어 돌아가서, **요한 세베대**가 선택한 반대편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할 생각을 했으며,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보기 흉한 자존심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오게 됐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고 불려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는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을 앉힐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배정됐고, 나머지 사도들은, 혹은 **유다** 쪽으로 혹은 **베드로**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두 앉게 됐다. 그들은 U자 모양의 식탁 옆으로 놓여 있는 비스듬한 의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리를 잡았는데: **주님**의 오른 편에는 **요한**이 앉았으며; 왼편으로는, **유다**, **열심당 시몬**, **마태**, **야고보 세베대**, **안드레**, **알패오** 쌍둥이,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 베드로**가 앉았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적어도 영적으로는, **모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상고해 보는 전통적 관례를 경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만찬은 그들이 **예수**와 갖는 마지막 회동이었고, 심지어 그런 엄숙한 배경 속에서도, **유다**를 선두로 해서 사도 모두가, 명예, 대접받음, 및 개인적 우월함을 좋아하는 옛 습성을 다시 나타냈다.

그들은 **주님**이 문에 들어올 때까지도, 여전히 화가 나서 비난하는 투의 말을 나눴으며, 그는 얼굴에 실망하는 표정을 서서히 떠올리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아무 말쑤도 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자리 배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이제 그들의 발이 아직 씻기지 않았다는 것과, 마음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 외에는, 만찬을 나눌 준비가 모두 갖춰졌다. **주님**이 도착했을 때, 충분히 감정을 통제한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말하지 않았던 몇 사람이 품었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주고받기에 바빴다.

2. 만찬을 시작함

잠시 후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들을 모두 둘러본 다음, **예수**께서는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미소로 바꾸면서 말씀했다: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무척 고대했다. 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기에, 내가 수난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너희와 식사를 같이하고자 했으며,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오늘 밤에 나눌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은, 내일 일을 생각

preferred seat, the one on the right of the host. Simon Peter was so enraged at this assumption of choice positions by Judas and John that, as the other angry apostles looked on, he marched clear around the table and took his place on the lowest couch, the end of the seating order and just opposite to that chosen by John Zebedee. Since others had seized the high seats, Peter thought to choose the lowest, and he did this, not merely in protest against the unseemly pride of his brethren, but with the hope that Jesus, when he should come and see him in the place of least honor, would call him up to a higher one, thus displacing one who had presumed to honor himself.

179:1.5 (1937.3) With the highest and the lowest positions thus occupied, the rest of the apostles chose places, some near Judas and some near Peter, until all were located. They were seated about the U-shaped table on these reclining divans in the following order: on the right of the Master, John; on the left, Judas, Simon Zelotes, Matthew, James Zebedee, Andrew, the Alpheus twins, Philip, Nathaniel, Thomas, and Simon Peter.

179:1.6 (1937.4) They are gathered together to celebrate, at least in spirit, an institution which antedated even Moses and referred to the times when their fathers were slaves in Egypt. This supper is their last rendezvous with Jesus, and even in such a solemn setting, under the leadership of Judas the apostles are led once more to give way to their old predilection for honor, preference, and personal exaltation.

179:1.7 (1937.5) They were still engaged in voicing angry recriminations when the Master appeared in the doorway, where he hesitated a moment as a look of disappointment slowly crept over his face. Without comment he went to his place, and he did not disturb their seating arrangement.

179:1.8 (1937.6) They were now ready to begin the supper, except that their feet were still unwashed, and they were in anything but a pleasant frame of mind. When the Master arrived, they were still engaged in making uncomplimentary remarks about one another, to say nothing of the thoughts of some who had sufficient emotional control to refrain from publicly expressing their feelings.

2. BEGINNING THE SUPPER

179:2.1 (1937.7) For a few moments after the Master had gone to his place, not a word was spoken. Jesus looked them all over and, relieving the tension with a smile, said: “I have grea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I wanted to eat with you once more before I suffered, and realizing that my hour has come, I arranged to have this supper with you tonight, for, as concerns the morrow, we are all in the hands of the Father, whose will I have

할 때, 내가 **아버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고, 그의 뜻에 우리 모두를 맡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완수한 후에, 그분이 내게 주실 천국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앉을 때까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먹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와 물을 섞은 다음, 사도들이 **예수**께 잔을 가져왔으며, 그는 **다대오**의 손에서 잔을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끝나자 말씀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그리고 너희가 잔을 받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에서 나온 것을 내가 너희와 다시는 마시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앉을 수 있는 때는, 도래할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이 땅에서 자신의 업무가 거의 완료됐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계시했고 그의 자비를 인류에게 나타냈음을 알았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큼,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가 그날 밤 그를 적에게 넘겨주기로 완전히 결심한 것도 알았다. 배신하는 이런 밀고{密告} 행위는 **유다**가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오히려, **루시퍼**, **사탄**, 그리고 암흑세계의 왕자인 **캘리게스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영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육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더욱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염려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추종자들의 안전과 구원이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아버지**께서 만유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셨음을 완전히 알고, 이제 형제간의 사랑에 관한 비유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come to execute. I shall not again eat with you until you sit down with me in the kingdom which my Father will give me when I have finished that for which he sent me into this world.”

179:2.2 (1938.1) After the wine and the water had been mixed, they brought the cup to Jesus, who, when he had received it from the hand of Thaddeus, held it while he offered thanks. And when he had finished offering thanks, he said: “Take this cup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and, when you partake of it, realize that I shall not again drink with you the fruit of the vine since this is our last supper. When we sit down again in this manner, it will be in the kingdom to come.”

179:2.3 (1938.2) Jesus began thus to talk to his apostles because he knew that his hour had come. He understood that the time had come when he was to return to the Father, and that his work on earth was almost finished. The Master knew he had revealed the Father's love on earth and had shown forth his mercy to mankind, and that he had completed that for which he came into the world, even to the receiving of all power and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Likewise, he knew Judas Iscariot had fully made up his mind to deliver him that night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He fully realized that this traitorous betrayal was the work of Judas, but that it also pleased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the prince of darkness. But he feared none of those who sought his spiritual overthrow any more than he feared those who sought to accomplish his physical death. The Master had but one anxiety, and that was for the safety and salvation of his chosen followers. And so, with the full knowledge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authority, the Master now prepared to enact the parable of brotherly love.

3. 사도의 발을 씻으심

유월절 음식의 첫 잔을 마신 후에 주빈이 식탁에서 일어나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이어서 음식을 먹다가 둘째 잔을 마신 후에, 모든 손님이 마찬가지로 일어나 손을 씻어야 했다. 사도들은 **주님**이 이렇게 예식절차대로 손 씻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첫 잔을 다 마신 후에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 물병, 대야, 그리고 수건들이 놓여있는 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주님**이 겹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발 씻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의구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다. 조금 전에 서로 발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식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기 흉하게 다투던 이 열두 사람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앉아 있는 만찬석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옆에, 아무도 앉

3. WASHING THE APOSTLES' FEET

179:3.1 (1938.3) After drinking the first cup of the Passover, it was the Jewish custom for the host to arise from the table and wash his hands. Later on in the meal and after the second cup, all of the guests likewise rose up and washed their hands. Since the apostles knew that their Master never observed these rites of ceremonial hand washing,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what he intended to do when, after they had partaken of this first cup, he arose from the table and silently made his way over to near the door, where the water pitchers, basins, and towels had been placed. And their curiosity grew into astonishment as they saw the Master remove his outer garment, gird himself with a towel, and begin to pour water into one of the foot basins. Imagine the amazement of these twelve men, who had so recently refused to wash

아있지 않은 끝 부분으로 가서,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시몬**의 발을 씻을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주님**이 무릎을 꿇자, 열두 사도는 모두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섰으며; 심지어 배신자 **유다**도 자신의 비행을 잠시 까맣게 잊고, 이런 놀람과 경의 그리고 대단한 경탄의 표현으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다.

일어섰던 **시몬 베드로**는, 쳐다보는 **주님**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 없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정말로 씻고자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다. 육신의 유혹에 약했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 이 **갈릴리** 어부는 **예수**의 신성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고백한 첫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그 후로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천한 종 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고,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을 씻으려는 **예수**의 의도에 화가 난 것은 당연했다. 이윽고 **주님**께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는 동료 사도 역시 똑같이 마음에 느끼고 있는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잠시 크게 당황한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내 발을 정말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씀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너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길게 숨을 쉬고,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도 역시, 자기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는 **예수**를 단호히 만류하는 **베드로**의 태도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때와는 다른 이런 장면의 인상적인 호소력에, 처음에는 **가롯 유다**의 마음도 감동을 받았지만; 자만심 강한 그의 지능이 그 광경에 대해 일단 비판하자, 자비로운 듯한 이 태도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님**의 대의{大義}를 저버리기로 확실히 결심했다.

그들 모두 숨을 죽이고 놀라면서 서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 발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분의 요청에 순종한다는 맹목적인 복인을 여러 번 했던 대로, 이번에도 그

one another's feet, and who had engaged in such unseemly disputes about positions of honor at the table, when they saw him make his way around the unoccupied end of the table to the lowest seat of the feast, where Simon Peter reclined, and, kneeling down in the attitude of a servant, make ready to wash Simon's feet. As the Master knelt, all twelve arose as one man to their feet; even the traitorous Judas so far forgot his infamy for a moment as to arise with his fellow apostles in this expression of surprise, respect, and utter amazement.

179:3.2 (1938.4) There stood Simon Peter, looking down into the upturned face of his Master. Jesus said nothing; it was not necessary that he should speak. His attitude plainly revealed that he was minded to wash Simon Peter's feet. Notwithstanding his frailties of the flesh, Peter loved the Master. This Galilean fisherman was the first human being wholeheartedly to believe in the divinity of Jesus and to make full and public confession of that belief. And Peter had never since really doubted the divine nature of the Master. Since Peter so revered and honored Jesus in his heart, it was not strange that his soul resented the thought of Jesus' kneeling there before him in the attitude of a menial servant and proposing to wash his feet as would a slave. When Peter presently collected his wits sufficiently to address the Master, he spoke the heart feelings of all his fellow apostles.

179:3.3 (1939.1) After a few moments of this great embarrassment, Peter said, "Master, do you really mean to wash my feet?" And then, looking up into Peter's face, Jesus said: "You may not fully understand what I am about to do, but hereafter you will know the meaning of all these things." Then Simon Peter, drawing a long breath, said, "Mas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And each of the apostles nodded their approval of Peter's firm declaration of refusal to allow Jesus thus to humble himself before them.

179:3.4 (1939.2) The dramatic appeal of this unusual scene at first touched the heart of even Judas Iscariot; but when his vainglorious intellect passed judgment upon the spectacle, he concluded that this gesture of humility was just one more episode which conclusively proved that Jesus would never qualify as Israel's deliverer, and that he had made no mistake in the decision to desert the Master's cause.

179:3.5 (1939.3) As they all stood there in breathless amazement, Jesus said: "Peter, I declare that, if I do not wash your feet, you will have no part with me in that which I am about to perform." When Peter heard this declaration, coupled with the fact that Jesus continued kneeling there at his feet, he made one of those decisions of blind acquiescence in compliance with the wish of one

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계획된 봉사를 실행 하심에는, **주님**의 업적과 관련하여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떤 의미가 첨부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시몬 베드로**에게 점점 분명하게 되자, 그는 **예수**께 자기 발을 씻으시도록 허락하기로 체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질대로 그리고 성급한 태도로,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카지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말씀했다: “이미 정결한 사람은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밤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너희는 정결하지만--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나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너희는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야 한다. 그 외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봉사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곧 너희에게 주려는 새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보여주고자 함이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돌면서 열두 사도의 발을 씻었고, **유다**도 빼놓지 않았다. 열두 사도의 발을 다 씻은 **예수**께서 겹옷을 입고 주빈석으로 돌아왔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도들을 둘러본 후에 말씀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이해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정말 그러하니, 너희가 잘 말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기꺼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나? 형제가 서로에게 해주기를 꺼려하는 그 봉사를 **주님**은 아주 기꺼이 베풀었다는 이 비유에서, 너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좋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 가운데서 지낸 나의 삶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너희가 봤으며, 호의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용기를 갖게 될 너희는 복되다. 그러나 영적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물질 세계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왜 그토록 더디 깨닫느냐?

“오늘 밤에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너희는 서로 발 씻어주기를 거만하게 거절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음이 분명하다. 그런 명에는 **바리새인**과 이 세상의 자녀들이나 찾는 것이며, 하늘 나라의 대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식탁에는 높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내 바로 옆자리는, 사람이 높은 자리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늘 나라에서 너희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백성에 대해 통치권을 갖는데, 때로는 이 권세자가 은혜 베푸는 이로 불린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려는 자는 어린 사람이 돼야 하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드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whom he respected and loved. As it began to dawn on Simon Peter that there was attached to this proposed enactment of service some signification that determined one's future connection with the Master's work, he not only became reconciled to the thought of allowing Jesus to wash his feet but, in his characteristic and impetuous manner, said: “Then, Master, wash not my feet only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179:3.6 (1939.4) As the Master made ready to begin washing Peter's feet, he said: “He who is already clean needs only to have his feet washed. You who sit with me tonight are clean — but not all. But the dust of your feet should have been washed away before you sat down at meat with me. And besides, I would perform this service for you as a parable to illustrate the meaning of a new commandment which I will presently give you.”

179:3.7 (1939.5) In like manner the Master went around the table, in silence, washing the feet of his twelve apostles, not even passing by Judas. When Jesus had finished washing the feet of the twelve, he donned his cloak, returned to his place as host, and after looking over his bewildered apostles, said:

179:3.8 (1939.6)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I have done to you? You call me Master, and you say well, for so I am. If, then, the Master has washed your feet, why was it that you were unwilling to wash one another's feet? What lesson should you learn from this parable in which the Master so willingly does that service which his brethren were unwilling to do for one anoth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eithe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he who sends him. You have seen the way of service in my life among you, and blessed are you who will have the gracious courage so to serve. But why are you so slow to learn that the secret of greatness in the spiritual kingdom is not like the methods of power in the material world?

179:3.9 (1940.1) “When I came into this chamber tonight, you were not content proudly to refuse to wash one another's feet, but you must also fall to disputing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ould have the places of honor at my table. Such honors the Pharisees and the children of this world seek, but it should not be so among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Do you not know that there can be no place of preferment at my table? Do you not understand that I love each of you as I do the others? Do you not know that the place nearest me, as men regard such honors, can mean nothing concerning your standing in the kingdom of heaven? You know that the kings of the gentiles have lordship over their subjects, while those who exercise this authority are sometimes called benefactors. But it shall not be so in the kingdom of heaven. He who would be great among you, let

냐? 식탁에 앉은 자가 대개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시중드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뜻을 행함에서 나와 함께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나와 함께 권능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미래의 영광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마지막 만찬**의 다음 식사 순서를 위해, 쓴 나물과 말린 과일 조각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알패오** 쌍둥이가 가져왔다.

4. 배반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사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주님**의 유쾌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곧 대화를 나누게 됐고, 오래지 않아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행사에 걸맞은 쾌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식사가 진행됐다. 시간이 조금 흘러 두 번째 음식 순서가 반쯤 지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너희에게 이미 말했으며, 악한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았고, 내일 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하루 전날인 오늘, 아무도 모르는 이 방에서 너희와 함께 만찬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지만,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줄 필요가 없었다.”

열두 사도는 이 말씀을 듣자, 발 씻는 비유와 이어진 **주님**의 강론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신뢰를 이미 모두 잃어버렸으므로, 서로 바라보면서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그게 나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질문한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배신자가 돼야만 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 자의 마음 속에 감춰진 악에서 나오는 당연한 열매다.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는 지적 자존심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쉬운지! 여러 해 동안 내 친구였던 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빵을 먹으면서도, 기꺼이 나를 팔게 될 것인데,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그게 나입니까?”라고 다시 묻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나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빵을 담그면서, **유다**를 손으로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고 말씀했다.

him become as the younger; while he who would be chief, let him become as one who serves. Who is the greater, he who sits at meat, or he who serves? Is it not commonly regarded that he who sits at meat is the greater? But you will observe tha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If you are willing to become fellow servants with me in doing the Father's will, in the kingdom to come you shall sit with me in power, still doing the Father's will in future glory.”

179:3.10 (1940.2)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 Alpheus twins brought on the bread and wine, with the bitter herbs and the paste of dried fruits, for the next course of the Last Supper.

4. LAST WORDS TO THE BETRAYER

179:4.1 (1940.3) For some minutes the apostles ate in silence, but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ter's cheerful demeanor they were soon drawn into conversation, and ere long the meal was proceeding as if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d occurred to interfere with the good cheer and social accord of this extraordinary occasion. After some time had elapsed, in about the middle of this second course of the meal, Jesus, looking them over, said: “I have told you how much I desired to have this supper with you, and knowing how the evil forces of darkness have conspired to bring about the death of the Son of Man, I determined to eat this supper with you in this secret chamber and a day in advance of the Passover since I will not be with you by this time tomorrow night. I have repeatedly told you that I must return to the Father. Now has my hour come, but it was not required that one of you should betray me into the hands of my enemies.”

179:4.2 (1940.4) When the twelve heard this, having already been robbed of much of their self-assertiveness and self-confidence by the parable of the feet washing and the Master's subsequent discourse, they began to look at one another while in disconcerted tones they hesitatingly inquired, “Is it I?” And when they had all so inquired, Jesus said: “While it is necessary that I go to the Father, it was not required that one of you should become a traitor to fulfill the Father's will. This is the coming to fruit of the concealed evil in the heart of one who failed to love the truth with his whole soul. How deceitful is the intellectual pride that precedes the spiritual downfall! My friend of many years, who even now eats my bread, will be willing to betray me, even as he now dips his hand with me in the dish.”

179:4.3 (1940.5)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y all began again to ask, “Is it I?” And as Judas, sitting on the left of his Master, again asked, “Is it I?” Jesus, dipping the bread in the dish of herbs, handed it to Judas, saying, “You have said.” But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예수**의 오른 편에 기대고 있던 **요한**이, 더 가까이 기대면서 **주님**께 물었다: “그게 누구니까? 맡은 책임에 충실치 않은 것이 드러난 자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고, 내가 빵 조각을 준 그에게도 말했다.” 그러나 주빈이 빵 조각을 왼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주님**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이것을 눈치 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인식했고, 자기가 배반자임을 형제들이 지금 알게 될까봐 두려워졌다.

베드로는 그런 대화로 인해 매우 흥분했으며, 식탁에 가까이 기대면서, “그게 누구인지 **주님**께 여쭙보든지, 이미 말씀하셨으면 누가 배반자인지 내게 말하라”고 **요한**에게 다그쳐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삭임을 제지하면서 말씀했다: “이런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슬프며, 진리의 능력이 악의 속임수를 이기기를 이 순간까지도 바랬지만, 그런 승리는, 진리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신앙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런 유감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경고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비시키기 원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알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음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바로 앞에 있는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너희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유다** 쪽으로 기대면서 말씀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을 행하되 속히 행하라.” **유다**는 이 말씀을 듣자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을 떠났으며, 마음 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본 다른 사도들은, 그가 아직도 돈주머니를 지참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만찬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이 시키는 다른 용무를 위해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이때, **유다**를 배신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그는 열두 명으로 시작했으나--이제는 열 하나만 남았다. 그가 처음 뽑은 사도는 여섯이었고, **유다**는 처음 선택된 사도들이 지명한 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내내 그를 용납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일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구원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예수께서는 이 만찬에서 부드러운 대화와 온화한 접촉으로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체제 있는 방법으로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정한 마음으로 준다 해도, 사랑이 일단 완전히 식으면, 훈계는 대개 미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완전히 자신만의 이기적인 계획을 행동으

the others did not hear Jesus speak to Judas. John, who reclined on Jesus' right hand, leaned over and asked the Master: “Who is it? We should know who it is that has proved untrue to his trust.” Jesus answered: “Already have I told you, even he to whom I gave the sop.” But it was so natural for the host to give a sop to the one who sat next to him on the left that none of them took notice of this, even though the Master had so plainly spoken. But Judas was painfully conscious of the meaning of the Master's words associated with his act, and he became fearful lest his brethren were likewise now aware that he was the betrayer.

179:4.4 (1941.1) Peter was highly excited by what had been said, and leaning forward over the table, he addressed John, “Ask him who it is, or if he has told you, tell me who is the betrayer.”

179:4.5 (1941.2) Jesus brought their whisperings to an end by saying: “I sorrow that this evil should have come to pass and hoped even up to this hour that the power of truth might triumph over the deceptions of evil, but such victories are not won without the faith of the sincere love of truth. I would not have told you these things at this, our last supper, but I desire to warn you of these sorrows and so prepare you for what is now upon us. I have told you of this because I desire that you should recall, after I have gone, that I knew about all these evil plottings, and that I forewarned you of my betrayal. And I do all this only that you may be strengthened for the temptations and trials which are just ahead.”

179:4.6 (1941.3) When Jesus had thus spoken, leaning over toward Judas, he said: “What you have decided to do, do quickly.” And when Judas heard these words, he arose from the table and hastily left the room, going out into the night to do what he had set his mind to accomplish. When the other apostles saw Judas hasten off after Jesus had spoken to him, they thought he had gone to procure something additional for the supper or to do some other errand for the Master since they supposed he still carried the bag.

179:4.7 (1941.4) Jesus now knew that nothing could be done to keep Judas from turning traitor. He started with twelve — now he had eleven. He chose six of these apostles, and though Judas was among those nominated by his first-chosen apostles, still the Master accepted him and had, up to this very hour, done everything possible to sanctify and save him, even as he had wrought for the peace and salvation of the others.

179:4.8 (1941.5) This supper, with its tender episodes and softening touches, was Jesus' last appeal to the deserting Judas, but it was of no avail. Warning, even when administered in the most tactful manner and conveyed in the most kindly spirit, as a rule, only intensifies hatred and fires the

로 옮기도록, 사악한 결심에 불을 붙일 뿐이다.

evil determination to carry out to the full one's own selfish projects, when love is once really dead.

5. 기념 만찬을 제정 하심

“축복의 잔”인 셋째 포도주 잔을 그들이 예수께로 가져오자,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잔을 잡고 축복하며 말씀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 모두 마시도록 하라. 이것은 나를 기념{記念}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섭리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진리의 영**의 증여와 사역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깊은 위엄과 완전한 정적{靜寂} 속에서 이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들 모두 직감했다. 전통적인 **유월절**은, 조상들이 민족 전체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을 기념했으며; 새로운 섭리시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제 **주님**은 새로운 기념 만찬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이 섭리시대에는 예식과 이기심의 사슬에 매였던 각 사람이 이를 벗어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해방된 신앙 아들들의 형제관계 속에서 친교 하는 영적 환희를 누린다.

그들이 이 새로운 기념의 잔을 다 마시자, **주님**은 빵을 들어 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옆으로 전하라고 지시하면서 말씀했다: “기념하는 이 빵을 가져다가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하나의 선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안에 계시됨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된다.” 기념의 빵, 즉 필사적 육체의 형태로 육신화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상징을 먹는 동안, 그들은 모두 앉아 있었다.

이 기념 만찬을 제정하면서, **주님**은 늘 하던 대로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다. **주님**이 상징을 이용한 것은, 후대의 사람이 정확한 해석을 덧붙이고 자신의 말에 대해 한정적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이어지는 세대에 전통과 교리로 이뤄진 죽은 굴레가 자신의 영적 의미들을 묶어버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정형화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전{全} 생애 사역과 관련하여 유일한 예식 또는 성례{聖禮}를 설립하는 동안, 직접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제안**하려고 무척 애썼다. 정확한 형식을 설립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류에 대한 각 개인의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형식으로 그 개념을 속박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심상{心像}을 제

5. ESTABLISHING THE REMEMBRANCE

SUPPER

179:5.1 (1941.6) As they brought Jesus the third cup of wine, the “cup of blessing,” he arose from the couch and, taking the cup in his hands, blessed it, saying: “Take this cup, all of you, and drink of it. This shall be the cup of my remembrance. This is the cup of the blessing of a new dispensation of grace and truth. This shall be to you the emblem of the bestowal and ministry of the divine Spirit of Truth. And I will not again drink this cup with you until I drink in new form with you in the Father’s eternal kingdom.”

179:5.2 (1942.1) The apostles all sensed that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was transpiring as they drank of this cup of blessing in profound reverence and perfect silence. The old Passover commemorated the emergence of their fathers from a state of racial slavery into individual freedom; now the Master was instituting a new remembrance supper as a symbol of the new dispensation wherein the enslaved individual emerges from the bondage of ceremonialism and selfishness into the spiritual joy of the brotherhood and fellowship of the liberated faith sons of the living God.

179:5.3 (1942.2) When they had finished drinking this new cup of remembrance, the Master took up the bread and, after giving thanks, broke it in pieces and, directing them to pass it around, said: “Take this bread of remembrance and eat it. I have told you that I am the bread of life. And this bread of life is the united life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one gift. The word of the Father, as revealed in the Son, is indeed the bread of life.” When they had partaken of the bread of remembrance, the symbol of the living word of truth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y all sat down.

179:5.4 (1942.3) In instituting this remembrance supper, the Master, as was always his habit, resorted to parables and symbols. He employed symbols because he wanted to teach certain great spiritual truths in such a manner as to make it difficult for his successors to attach precise interpretations and definite meanings to his words. In this way he sought to prevent successive generations from crystallizing his teaching and binding down his spiritual meanings by the dead chains of tradition and dogma. In the establishment of the only ceremony or sacrament associated with his whole life mission, Jesus took great pains to *suggest* his meanings rather than to commit himself to *precise definitions*. He did not wish to destroy the individual’s concept of divine

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사람의 혼이, 새롭고 생생한 영적 자유의 즐거움 날개로 자유로이 날도록 하려고 애썼다.

새로운 기념 성례를 설립하려는 **주님**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그를 따랐던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었던 그 마지막 밤에 그가 제시한 단순한 영적 상징성에 대해, 엄밀한 해석을 부여하고, 거의 수학적인 정확성에 버금가는 공식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명확하게 제시했던 그의 소망이 여러 세기 {世紀} 동안 효과적으로 변질되게 하고야 말았다. **예수**의 교훈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전통화_규격화된 것은 없다.

하나님을_알고 **아들**을_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 신{神}이 현존하신다는 의미에 관하여 사람이 갖는 어떤 미숙한 오해가 있든지, 기념하는 이 만찬이 그 상징성과 관련될 필요는 없는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경우에 실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신자와 **미가엘**의 상징적인 만찬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을 의식하게 되면, **아들**은 실제로 현존하며, 그의 영이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斷片)과 함께 형제처럼 사귄다.

그들이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했다:“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내 일생을 회고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살며 너희를 통해서 계속 봉사한다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두 형제처럼 돼야 한다. 많은 신자 무리를 받아들일 만큼 천국이 확장되도, 너희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여전히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은 한 친구의 다락방에서 이뤄졌다. 그 만찬이나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신성시되는 형태나 예식으로 신성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기념 만찬은 교회의 허락 없이 제정됐다.

기념 만찬 제정을 마친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먼저 육체 속에서 지낸 나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내가 한때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회상한 후에, 너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임을, 신앙으로 인식하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유월절**인데, 증여했던 나의 생애, 즉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기념하는 것이며;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즉 모든 육체에게 나의 **진리의 영**을 부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을 다함께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기념 만찬 설립과 관련하여, 오래

communion by establishing a precise form; neither did he desire to limit the believer's spiritual imagination by formally cramping it. He rather sought to set man's reborn soul free upon the joyous wings of a new and living spiritual liberty.

179:5.5 (1942.4) Notwithstanding the Master's effort thus to establish this new sacrament of the remembrance, those who followed after him in the intervening centuries saw to it that his express desire was effectively thwarted in that his simple spiritual symbolism of that last night in the flesh has been reduced to precise interpretations and subjected to the almost mathematical precision of a set formula. Of all Jesus' teachings none have become more tradition-standardized.

179:5.6 (1942.5) This supper of remembrance, when it is partaken of by those who are Son-believing and God-knowing, does not need to have associated with its symbolism any of man's puerile mis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divine presence, for upon all such occasions the Master is *really present*. The remembrance supper is the believer's symbolic rendezvous with Michael. When you become thus spirit-conscious, the Son is actually present, and his spirit fraternizes with the indwelling fragment of his Father.

179:5.7 (1942.6) After they had engaged in meditation for a few moments, Jesus continued speaking: “When you do these things, recall the life I have lived on earth among you and rejoice that I am to continue to live on earth with you and to serve through you. As individuals, contend not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all be greatest. Be you all as brethren. And when the kingdom grows to embrace large groups of believers, likewise should you refrain from contending for greatness or seeking preferment between such groups.”

179:5.8 (1943.1) And this mighty occasion took place in the upper chamber of a friend. There was nothing of sacred form or of ceremonial consecration about either the supper or the building. The remembrance supper was established without ecclesiastical sanction.

179:5.9 (1943.2) When Jesus had thus established the supper of the remembrance, he said to the eleven: “And as often as you do this, do it in remembrance of me. And when you do remember me, first look back upon my life in the flesh, recall that I was once with you, and then, by faith, discern that you shall all sometime sup with me in the Father's eternal kingdom. This is the new Passover which I leave with you, even the memory of my bestowal life, the word of eternal truth; and of my love for you, the outpouring of my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179:5.10 (1943.3) And they ended this celebration of the old but bloodless Passover in connection with

된 유월절을 축하하는 이 예식을 피 흘림 없이 마
쳤다.

the inauguration of the new supper of the
remembrance, by singing, all together, the one
hundred and eighteenth Psalm.

제180편. 작별 강론

⇨ 179

유랜시아 책

181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180편
작별 강론

섹션

소개

1. 새 계명
2. 포도나무와 가지
3. 세상의 적대감
4. 약속된 협조자
5. 진리의 영
6. 떠나야 할 필요성

PAPER 180

THE FAREWELL DISCOU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w Commandment
2. The Vine and the Branches
3. Enmity of the World
4. The Promised Helper
5. The Spirit of Truth
6. The Necessity for Leaving

소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시편**을 노래한 후에, 사도들은 즉시 야영지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내가 돈주머니나 전대{纏帶} 없이 너희를 내보내면서, 심지어 여분의 옷도 갖지 못하게 했던 때를 너희는 잘 기억한다. 그리고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았음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고난의 시대가 왔다. 너희는 더 이상 대중의 호의{好意}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돈주머니 있는 자는 갖고 다녀라.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의 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지만, 평화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이제 왔고, 나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친구들아, 내가 잠깐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곧 나를 찾으려 하겠지만,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일을 다 마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업무를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겠고, 너희는

INTRODUCTION

180:0.1 (1944.1) AFTER singing the Psalm at the conclusion of the Last Supper, the apostles thought that Jesus intended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camp, but he indicated that they should sit down. Said the Master:

180:0.2 (1944.2) “You well remember when I sent you forth without purse or wallet and even advised that you take with you no extra clothes. And you will all recall that you lacked nothing. But now have you come upon troublous times. No longer can you depend upon the good will of the multitudes. Henceforth, he who has a purse, let him take it with him.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to proclaim this gospel, make such provision for your support as seems best. I have come to bring peace, but it will not appear for a time.

180:0.3 (1944.3) “The time has now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and the Father shall be glorified in me. My friends, I am to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Soon you will seek for me, but you will not find me, for I am going to a place to which you cannot, at this time, come. But when you have finished your work on earth as I have now finished mine, you shall then come to me even as I now prepare to go to my Father. In just a short time I

나를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천국으로 너희가 올라올 때, 도래할 그 시대에 너희 모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am going to leave you, you will see me no more on earth, but you shall all see me in the age to come when you ascend to the kingdom which my Father has given to me.”

1. 새 계명

잠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다: “너희가 어떻게 기꺼이 서로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비유를 너희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새 계명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를 떠나게 된 지금 그것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즉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는 계명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의 편에서 진지하게 헌신하는 것에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나는 너희가 믿음의 형제관계인 천국에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 혼에게 어떤 새 짐도 더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새 기쁨을 주고, 너희 마음이 동료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는 환희를 깨달음으로써 새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슬픔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너희와 너희의 동료 필사자들에게 내 애정을 줌으로써, 최상의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에게 권면할 때, 나는 최상의 참된 애정을 너희 앞에 보여줬는데, 사람은 이것보다: 즉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친구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꺼이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히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의 동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임명했다.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충만해지는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너희가 그의 섬김의 자세를 닮는 것이다.

1. THE NEW COMMANDMENT

180:1.1 (1944.4) After a few moments of informal conversation, Jesus stood up and said: “When I enacted for you a parable indicating how you should be willing to serve one another, I said that I desired to give you a new commandment; and I would do this now as I am about to leave you. You well know the commandment which directs that you love one another; that you love your neighbor even as yourself. But I am not wholly satisfied with even that sincere devotion on the part of my children. I would have you perform still greater acts of love in the kingdom of the believing brotherhood. And so I give you this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And by this wi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thus love one another.

180:1.2 (1944.5) “When I give you this new commandment, I do not place any new burden upon your souls; rather do I bring you new joy and make it possible for you to experience new pleasure in knowing the delights of the bestowal of your heart’s affection upon your fellow men. I am about to experience the supreme joy, even though enduring outward sorrow, in the bestowal of my affection upon you and your fellow mortals.

180:1.3 (1944.6) “When I invite you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I hold up before you the supreme measure of true affection, for greater love can no man have than this: that he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And you are my friends; you will continue to be my friends if you are but willing to do what I have taught you. You have called me Master, but I do not call you servants. If you will only love one another as I am loving you, you shall be my friends, and I will ever speak to you of that which the Father reveals to me.

180:1.4 (1945.1) “You have not merely chosen me, but I have also chosen you, and I have ordained you to go forth into the world to yield the fruit of loving service to your fellows even as I have lived among you and revealed the Father to you. The Father and I will both work with you, and you shall experience the divine fullness of joy if you will only obey my command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180:1.5 (1945.2) If you would share the Master’s joy, you must share his love. And to share his love means that you have shared his service. Such an experience of love does not deliver you from the

그런 사랑의 체험이 너희를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겠지만, 틀림없이 옛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충성이다. 희생한다는 의식은, 최상의 기쁨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되는, 마음을 다하는 애정이 없음을 뜻한다. 의무라는 관념은, 너희가 종의 기질을 가졌음을 뜻하며, 그리하여 너희가 친구로서 봉사하고 친구를 위해 봉사하는 엄청난 감동을 체험하지 못함을 뜻한다.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충동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모든 신념을 초월하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으며, 이제 떠나기 전에, 그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2. 포도나무와 가지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계속 가르쳤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오직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오직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내게서 나온,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열매 맺는 가지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말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 계속 씻어야 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 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죽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살아있는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라. 내 안에 살고 또한 내가 그 안에 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영적 수확을 얻는 최상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너희가 나와 생생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다면, 나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영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많은 가지가 있고, 모든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있다. 그리고 열매_맺는 이 가지들--곧 내가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같이,

difficulties of this world; it does not create a new world, but it most certainly does make the old world new.

180:1.6 (1945.3) Keep in mind: It is loyalty, not sacrifice, that Jesus demands. The consciousness of sacrifice implies the absence of that wholehearted affection which would have made such a loving service a supreme joy. The idea of *duty* signifies that you are servant-minded and hence are missing the mighty thrill of doing your service as a friend and for a friend. The impulse of friendship transcends all convictions of duty, and the service of a friend for a friend can never be called a sacrifice. The Master has taught the apostles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He has called them brethren, and now, before he leaves, he calls them his friends.

2. THE VINE AND THE BRANCHES

180:2.1 (1945.4) Then Jesus stood up again and continued teaching his apostl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husbandman.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And the Father requires of me only that you shall bear much fruit. The vine is pruned only to increase the fruitfulness of its branches. Every branch coming out of me which bears no fruit, the Father will take away. Every branch which bears fruit, the Father will cleanse that it may bear more fruit. Already are you clean through the word I have spoken, but you must continue to be clean. You must abide in me, and I in you; the branch will die if it is separated from the vine.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except it abide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yield the fruits of loving service except you abide in me. Remember: I am the real vine, and you are the living branches. He who live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of the spirit and experience the supreme joy of yielding this spiritual harvest. If you will maintain this living spiritual connection with me, you will bear abundant fruit.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live in you, you will be able to commune freely with me, and then can my living spirit so infuse you that you may ask whatsoever my spirit wills and do all this with the assurance that the Father will grant us our petition. Herein is the Father glorified: that the vine has many living branches, and that every branch bears much fruit. And when the world sees these fruit-bearing branches — my friends wh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them —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truly my disciples.

180:2.2 (1945.5)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Live in my love even as I live in the Father’s love. If you do as I have taught you, you shall abide in my love even as I have kept the Father’s word and evermore abide in his love.”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윗** 혈통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줄기”가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이런 옛 가르침을 기념해서, **헤롯** 성전 입구에 큰 포도와 그것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 무늬로 장식했다. **주님**이 이날 밤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회상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주님**의 결론이 잘못 해석되면서, 아주 슬픈 일이 나중에 발생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나중에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이런 교훈에 관한 어려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만들어질 때, 신자들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일종의 최고 마술로 간주하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직한 혼들이, 넘어지게 하는 이 장애물에 부딪쳐서, 수세기 동안 자신의 신앙을 계속 파괴해왔다. 기도는 너희의 방식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계획표, 즉 **아버지** 뜻을 어떻게 깨닫고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신자들 사회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너희의 뜻이 그의 뜻과 참으로 일치할 때, 너희는 합치된 뜻에 따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응답 받으리라는 사실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치된 뜻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지들 속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흐르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사이에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성립할 때, 이기적 편안함을 위하여 그리고 허영심에서 나오는 성취를 위하여, 인성이 여전히 경솔하고 무례하게 기도하더라도, 신의 응답은 오직 하나만 있는데: 살아있는 가지의 줄기에는 증진된 영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을 때, 모든 요청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가능하네: 더 많은 포도가 맺히는 것이다. 사실상, 가지는 오직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존재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영의 열매를 맺는 목적: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곧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계의 손이 포도나무에 가해질 때, 그것은 사랑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가지들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현명한 농부는, 오직 죽어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만 잘라버린다.

영이 지배하는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자들의 역할이 기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도록 이끌 때에도, **예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80:2.3 (1946.1) The Jews had long taught that the Messiah would be “a stem arising out of the vine” of David’s ancestors, and in commemoration of this olden teaching a large emblem of the grape and its attached vine decorated the entrance to Herod’s temple. The apostles all recalled these things while the Master talked to them this night in the upper chamber.

180:2.4 (1946.2) But great sorrow later attended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inferences regarding prayer. There would have been little difficulty about these teachings if his exact words had been remembered and subsequently truthfully recorded. But as the record was made, believers eventually regarded prayer in Jesus’ name as a sort of supreme magic, thinking that they would receive from the Father anything they asked for. For centuries honest souls have continued to wreck their faith against this stumbling block. How long will it take the world of believers to understand that prayer is not a process of getting your way but rather a program of taking God’s way, an experience of learning how to recognize and execute the Father’s will? It is entirely true that, when your will has been truly aligned with his, you can ask anything conceived by that will-union, and it will be granted. And such a will-union is effected by and through Jesus even as the life of the vine flows into and through the living branches.

180:2.5 (1946.3) When there exists this living connection between divinity and humanity, if humanity should thoughtlessly and ignorantly pray for selfish ease and vainglorious accomplishments, there could be only one divine answer: more and increased bearing of the fruits of the spirit on the stems of the living branches. When the branch of the vine is alive, there can be only one answer to all its petitions: increased grape bearing. In fact, the branch exists only for, and can do nothing except, fruit bearing, yielding grapes. So does the true believer exist only for the purpose of bearing the fruits of the spirit: to love man as he himself has been loved by God —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even as Jesus has loved us.

180:2.6 (1946.4) And when the Father’s hand of discipline is laid upon the vine, it is done in love, in order that the branches may bear much fruit. And a wise husbandman cuts away only the dead and fruitless branches.

180:2.7 (1946.5) Jesus had great difficulty in leading even his apostles to recognize that prayer is a function of spirit-born believers in the spirit-dominated kingdom.

3. 세상의 적대감

열한 사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설교에 대한 토의를 끝내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자기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그들에게 좀 더 말씀하기 원한다는 뜻을 비치면서 말씀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때,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연약한 마음의 신자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천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의 삶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택함 받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의 영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항상 기억해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너희 또한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렸다면, 너희 말 또한 그들에게 거슬릴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내 복음을 위해 많은 일로 수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을 견딜 때, 나도 이 하늘 나라 복음을 위해 너희보다 먼저 수난 당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공격할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늘의 빛에 무지하지만,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 더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비난 받지 않고 여러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은 빛을 알면서도 감히 거절했으니, 자신의 태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없는데; 받아들이면 너희를 구원했을 그 빛은, 오직 고의로 거부될 때에만 너희를 책망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격렬한 증오심으로 나를 미워해야 할 만큼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나? 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하늘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제안한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성서**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만 외롭게 이 세상에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영 협조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가운데서 내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에게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기를 계속하라.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듯이, **아버지**의 우주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에 대해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빛의 세계들로, 즉 **아버지**의 하늘에 있는 여러 정류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도 장차 그리로

3. ENMITY OF THE WORLD

180:3.1 (1946.6) The eleven had scarcely ceased their discussions of the discourse on the vine and the branches when the Master, indicating that he was desirous of speaking to them further and knowing that his time was short, said: “When I have left you, be not discouraged by the enmity of the world. Be not downcast even when fainthearted believers turn against you and join hands with the enemies of the kingdom. If the world shall hate you, you should recall that it hated me even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the wor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the world refuses to love you. You are in this world, but your lives are not to be worldlike.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o represent the spirit of another world even to this world from which you have been chosen. But always remember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dare to persecute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my words offend the unbelievers, so also will your words offend the ungodly. And all of this will they do to you because they believe not in me nor in Him who sent me; so will you suffer many things for the sake of my gospel. But when you endure these tribulations, you should recall that I also suffered before you for the sake of this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180:3.2 (1947.1) “Many of those who will assail you are ignorant of the light of heaven, but this is not true of some who now persecute us. If we had not taught them the truth, they might do many strange things without falling under condemnation, but now, since they have known the light and presumed to reject it,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attitude.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It cannot be otherwise; the light which would save you if accepted can only condemn you if it is knowingly rejected. And what have I done to these men that they should hate me with such a terrible hatred? Nothing, save to offer them fellowship on earth and salvation in heaven. But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the saying: ‘And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180:3.3 (1947.2) “But I will not leave you alone in the world. Very soon, after I have gone, I will send you a spirit helper. You shall have with you one who will take my place among you, one who will continue to teach you the way of truth, who will even comfort you.

180:3.4 (1947.3)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continue to believe also in me. Even though I must leave you, I will not be far from you. I have already told you that in my Father’s universe there are many tarrying-places. If this were not true, I would not have repeatedly told you about them. I am going to return to these worlds of light, stations in the Father’s heaven to which you

올라올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저 위에 있는 그 구체들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의 하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된 필사자를 위해 준비된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르러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하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더 큰 우주에 계시는 내 **아버지**계로 내가 가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우주에서 내게로 올라올 때, 너희는 결국 실제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참되며 영원하다. 내가 **아버지**계로 가고, 비록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자, **도마**가 일어나서 말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바로 오늘 밤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했다: “**도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계로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나를 발견한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계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았고 지금 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여러 사도, 특히 **빌립**에게는 너무 어려웠으며, 그가 **나다니엘**과 몇 마디 이야기한 후에 일어나서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빌립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빌립**아, 내가 그토록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했고, 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내가 다 이뤘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할 때, 나를 믿으라,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바로 그 생애를 인해--곧 행한 일로 인해--나를 믿으라.”

주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 옆으로 가자, 열한 사도는 이 교훈에 대해 열을 내어 토론했으며,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때, **베드로**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shall sometime ascend. From these places I came into this world, and the hour is now at hand when I must return to my Father's work in the spheres on high.

180:3.5 (1947.4) “If I thus go before you into the Father's heavenly kingdom, so will I surely send for you that you may be with me in the places that were prepared for the mortal sons of God before this world was. Even though I must leave you, I will be present with you in spirit, and eventually you shall be with me in person when you have ascended to me in my universe even as I am about to ascend to my Father in his greater universe. And what I have told you is true and everlasting, even though you may not fully comprehend it. I go to the Father, and though you cannot now follow me, you shall certainly follow me in the ages to come.”

180:3.6 (1947.5) When Jesus sat down, Thomas arose and said: “Master,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of course we do not know the way. But we will follow you this very night if you will show us the way.”

180:3.7 (1947.6) When Jesus heard Thomas, he answered: “Thoma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go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ll who find the Father, first find me. If you know me, you know the way to the Father. And you do know me, for you have lived with me and you now see me.”

180:3.8 (1947.7) But this teaching was too deep for many of the apostles, especially for Philip, who, after speaking a few words with Nathaniel, arose and said: “Master, show us the Father, and everything you have said will be made plain.”

180:3.9 (1947.8) And when Philip had spoken, Jesus said: “Philip,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do not even now know me? Again do I declare: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then say, Show us the Father?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Have I not taught you that the words which I speak are not my words but the words of the Father? I speak for the Father and not of myself. I am in this world to do the Father's will, and that I have done. My Father abides in me and works through me. Believe me when I say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that I am in the Father, or else believe me for the sake of the very life I have lived — for the work's sake.”

180:3.10 (1948.1) As the Master went aside to refresh himself with water, the eleven engaged in a spirited discussion of these teachings, and Peter was beginning to deliver himself of an extended speech when Jesus returned and beckoned them to be seated.

4. 약속된 협조자

예수께서 계속 가르쳤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그가 완전히 용납하신 후에, 그리고 내 영역에 대한 최종 주권을 수여 받은 후에,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다른 선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모든 육체에 진리의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며, 그날이 되면,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소유하듯이, 나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선물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다. 불신자가 처음에는 이 영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하겠지만, 빛의 자녀는 모두 그를 기쁘게 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가 올 때 너희는 이 영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선물을 너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일 것이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아무 도움과 인도함 없이 너희를 남겨둔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오직 실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다가오는 시절에는,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 각자와 동시에, 즉 너희뿐만 아니라 내 현존을 바라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한데, 영 속에서 더 훌륭하고 완전하게 너희와 함께 하려고,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몇 시간 후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이 선생, 즉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너희는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몸소 너희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에는 너희 안에 살 것이며; 영 나라에서 내가 너희의 개인 체험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감춰져 있으면서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의 말씀을 지켰으며; 너희는 나를 사랑했고, 또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여할 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안내하고 위로할 것이며, 결국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새 날이 오면, 너희에게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들이 내주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하는 이 선물은, 아버지와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한 인격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일했던 것처럼 서로 하나가 돼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이 영 친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4. THE PROMISED HELPER

180:4.1 (1948.2) Jesus continued to teach, saying: “When I have gone to the Father, and after he has fully accepted the work I have done for you on earth, and after I have received the final sovereignty of my own domain, I shall say to my Father: Having left my children alone on earth, it is in accordance with my promise to send them another teacher. And when the Father shall approve, I will pour out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Already is my Father’s spirit in your hearts, and when this day shall come, you will also have me with you even as you now have the Father. This new gift is the spirit of living truth. The unbelievers will not at first listen to the teachings of this spirit, but the sons of light will all receive him gladly and with a whole heart. And you shall know this spirit when he comes even as you have known me, and you will receive this gift in your hearts, and he will abide with you. You thus perceive that I am not going to leave you without help and guidance. I will not leave you desolate. Today I can be with you only in person. In the times to come I will be with you and all other men who desire my presence, wherever you may be, and with each of you at the same time. Do you not discern that it is better for me to go away; that I leave you in the flesh so that I may the better and the more fully be with you in the spirit?”

180:4.2 (1948.3) “In just a few hours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continue to know me in your hearts even until I send you this new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s I have lived with you in person, then shall I live in you; I shall be one with your personal experience in the spirit kingdom. And when this has come to pass, you shall surely know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at, while your life is hid with the Father in me, I am also in you. I have loved the Father and have kept his word; you have loved me, and you will keep my word. As my Father has given me of his spirit, so will I give you of my spirit. And this Spirit of Truth which I will bestow upon you shall guide and comfort you and shall eventually lead you into all truth.

180:4.3 (1948.4) “I am telling you these things while I am still with you that you may be the better prepared to endure those trials which are even now right upon us. And when this new day comes, you will be indwelt by the Son as well as by the Father. And these gifts of heaven will ever work the one with the other even as the Father and I have wrought on earth and before your very eyes as one person, the Son of Man. And this spirit friend will bring to your remembrance everything I have taught you.”

주님이 잠시 말씀을 멈추자, **유다 알패오**는 자신과 형제가 **예수**께 공개적으로 말한 매우 적은 질문 가운데 하나를 이때 대담하게 질문했다. **유다**가 말했다: “**주님**, 당신은 항상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지내셨는데, 이 영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미소 지으며 말씀했다: “애들아, 나는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 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는 나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 물질적 몸을 제외하고는 나와 똑같은 것이다. 새로 오는 이 선생은 너희 각자와 함께 너희 마음 속에서 살게 될 **진리의 영**이며, 빛의 자녀는 하나가 되고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각자의 혼 속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체험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유다 알패오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새 선생에 대한 약속을 파악했으며, 자신의 질문이 만족한 답변을 얻었음을 **안드레**의 얼굴 표정에서 눈치 챘다.

180:4.4 (1948.5) As the Master paused for a moment, Judas Alpheus made bold to ask one of the few questions which either he or his brother ever addressed to Jesus in public. Said Judas: “Master, you have always lived among us as a friend; how shall we know you when you no longer manifest yourself to us save by this spirit? If the world sees you not, how shall we be certain about you? How will you show yourself to us?”

180:4.5 (1949.1) Jesus looked down upon them all, smiled, and said: “My little children, I am going away, going back to my Father. In a little while you will not see me as you do here, as flesh and blood. In a very short time I am going to send you my spirit, just like me except for this material body. This new teacher is the Spirit of Truth who will live with each one of you, in your hearts, and so will all the children of light be made one and be drawn toward one another. And in this very manner will my Father and I be able to live in the souls of each one of you and also in the hearts of all other men who love us and make that love real in their experiences by loving one another, even as I am now loving you.”

180:4.6 (1949.2) Judas Alpheus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the Master said, but he grasped the promise of the new teacher, and from the expression on Andrew's face, he perceived that his question had been satisfactorily answered.

5. 진리의 영

예수께서 신자들의 마음 속으로 보내고 모든 육체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협조자는 **진리의 영**이다. 이 신성한 자질은, 진리를 기록한 글이나 법칙이 아니고, 진리의 형식이나 표현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새 선생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요, 진정한 영 수준에서 참된 의미를 의식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선생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진리, 즉 확장하고, 드러내고, 융통성 있는 진리의 영이다.

신성한 진리는 영으로 식별되며 살아있는 실체다. 진리는,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류함을 인식하는 높은 수준에서만 존재한다.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수도 있으며, 혼 속에서 진리가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정신 속에서 그것을 밝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공식, 규약, 신조, 또는 인간 행위라는 지적 양식(樣式) 속에 진리를 가둬 둘 수는 없다. 너희가 신성한 진리를 인간적으로 공식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신속히 죽어간다. 감금된 진리가 죽어버린 후에 구출해봤자, 기껏해야, 결국 지적으로 분석된 미화된 지혜라는 괴상한 형태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정지된 진리는 죽은 진리이며, 죽은 진리는 오직 이론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 역동적이며, 인간 정신 속에서 체험으로만 실존할

5. THE SPIRIT OF TRUTH

180:5.1 (1949.3) The new helper which Jesus promised to send into the hearts of believers, to pour out upon all flesh, is the *Spirit of Truth*. This divine endowment is not the letter or law of truth, neither is it to function as the form or expression of truth. The new teacher is the *conviction of truth*, the consciousness and assurance of true meanings on real spirit levels. And this new teacher is the spirit of living and growing truth, expanding, unfolding, and adaptative truth.

180:5.2 (1949.4) Divine truth is a spirit-discerned and living reality. Truth exists only on high spiritual levels of the realization of divinity and the consciousness of communion with God. You can know the truth, and you can live the truth; you can experience the growth of truth in the soul and enjoy the liberty of its enlightenment in the mind, but you cannot imprison truth in formulas, codes, creeds, or intellectual patterns of human conduct. When you undertake the human formulation of divine truth, it speedily dies. The post-mortem salvage of imprisoned truth, even at best, can eventuate only in the realization of a peculiar form of intellectualized glorified wisdom. Static truth is dead truth, and only dead truth can be held as a

수 있다.

지성은, 시공우주 정신이 현존함으로써 명확해지는 물질 실존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혜는, 새로운 의미 수준으로 향상된, 그리고 지혜 보조체라는 우주 재능이 현존함으로써 활성화된 지식에 대한 의식(意識)을 포함한다. 진리는 오직 영을 부여받은 존재들만 체험하는 영적인 실체 가치인데, 그 존재들은 우주 인식의 초(超)물질 수준에서 작용하며,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활성화된 영이 그들의 혼 속에 거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한다.

우주를 통찰함으로 태어난 참 제자는, 모든 지혜로운 말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을 찾는다. **하나님**을 아는 각 개인은, 신성하게 성취되는 살아있는 진리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꾸준히 향상시키며;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혼은, 죽은 지혜 수준으로, 그리고 단지 고양된 지식 영역으로, 살아있는 진리를 항상 끌어내린다.

진리의 영이라는 초인적 통찰력이 제거될 때, 황금률은 고상한 도덕적 행실의 규율에 지나지 않게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황금률은 자기 동료를 크게 적대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황금률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완전하고 솔직한 진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동료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황금률에 대한 그런 영적이지 못한 해석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불행과 끝없는 비애를 낳을지도 모른다.

더러는, 인간이 형제라는 것을 순전히 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라도 되는 듯이 황금률을 판별하고 해석한다. 또 더러는, 인간의 인격에 대한 미숙한 감각을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이 인간 관계의 표현을 체험한다. 다른 필사자들은, 동일한 이 황금률을, 모든 사회관계를 재는 잣대, 즉 사회적 행위에 대한 표준으로 여긴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모든 형제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도덕적 책무 개념을 이 문구에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어느 위대한 도덕 선생에게서 나온 긍정적 훈령으로 간주한다. 그런 도덕적 존재들의 생애에서, 황금률은 그들의 모든 철학의 현명한 핵심과 경계선이 된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신자(信者) 단체인 천국에서, 이 황금률은 더 높은 수준에서 해석할 때 영적으로 실현되는 활기찬 특성을 띠는데,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필사 아들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명령이, 신자가 그들과 접촉한 결과로서 그 동료들이 가능한 최대의 유익을 얻는 방법으로 동료들과 사귀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게 만든다. 참 종교의 본질은: 너 자신을 사랑

theory. Living truth is dynamic and can enjoy only an experiential existence in the human mind.

180:5.3 (1949.5) Intelligence grows out of a material existence which is illuminated by the presence of the cosmic mind. Wisdom comprises the consciousness of knowledge elevated to new levels of meaning and activated by the presence of the universe endowment of the adjutant of wisdom. Truth is a spiritual reality value experienced only by spirit-endowed beings who function upon supermaterial levels of universe consciousness, and who, after the realization of truth, permit its spirit of activation to live and reign within their souls.

180:5.4 (1949.6) The true child of universe insight looks for the living Spirit of Truth in every wise saying. The God-knowing individual is constantly elevating wisdom to the living-truth levels of divine attainment; the spiritually unprogressive soul is all the while dragging the living truth down to the dead levels of wisdom and to the domain of mere exalted knowledge.

180:5.5 (1949.7) The golden rule, when divested of the superhuman insight of the Spirit of Truth, becomes nothing more than a rule of high ethical conduct. The golden rule, when literally interpreted, may become the instrument of great offense to one's fellows. Without a spiritual discernment of the golden rule of wisdom you might reason that, since you are desirous that all men speak the full and frank truth of their minds to you, you should therefore fully and frankly speak the full thought of your mind to your fellow beings. Such an un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might result in untold unhappiness and no end of sorrow.

180:5.6 (1950.1) Some persons discern and interpret the golden rule as a purely intellectual affirmation of human fraternity. Others experience this expression of human relationship as an emotional gratification of the tender feelings of the human personality. Another mortal recognizes this same golden rule as the yardstick for measuring all social relations, the standard of social conduct. Still others look upon it as being the positive injunction of a great moral teacher who embodied in this statement the highest concept of moral obligation as regards all fraternal relationships. In the lives of such moral beings the golden rule becomes the wise center and circumference of all their philosophy.

180:5.7 (1950.2) In the kingdom of the believing brotherhood of God-knowing truth lovers, this golden rule takes on living qualities of spiritual realization on those higher levels of interpretation which cause the mortal sons of God to view this injunction of the Master as requiring them so to relate themselves to their fellows that they will receive the highest possible good as a result of the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금률에 대한 가장 고상한 실현과 가장 진실한 해석은, 그런 신성한 선언으로 말미암는, 영속적이고 생생한 실체인 진리의 영을 의식(意識)하는 것에 있다. 이런 보편적 관계의 법칙이 갖는 참된 시공우주 의미는, 오직 그 영적 실현에서, 즉 필사적 사람의 혼에 내주하는 **아버지**의 영에게 **아들**의 영이 행동 법칙을 해석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영으로 인도되는 그런 필사자들이 이 황금률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친근한 우주에서 시민이 됐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며, 영적 실체에 대한 그들의 이상(理想)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이 동료들을 사랑할 때 충족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의 실체다.

하나님의 아들마다, 개인의 필요조건과 수용력에 따라서 신성한 진리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시공우주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철학을 먼저 감지해야만, **주님**이 악에 대한 무저항을 가르치고 실천한 것에 대해 너희가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영적 선언이다. 그의 철학에서 물질적으로 암시하는 것들이라도, 그 영적 상관관계를 떠나서는 고려될 수 없다. **주님**이 내린 명령의 정신은, 우주에 대해 온갖 이기적 반응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있으며, 동시에 참된 영적 가치: 즉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그리고 영원한 진리—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점점 그를 닮아가는 것—의 올바른 수준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함에 있다.

사랑, 즉 애타심(愛他心)은, **진리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관계를 건설하고 생생하게 다시 적응시키는 판단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랑은, 사랑 받는 각 개인이 시공우주에서 얻는 가장 고상한 유익에 대해 항상 변화하고 확대되는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더 나아가서, 영의 인도를 받는 한 필사자가 우주의 다른 시민을 사랑하는 성장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혹시 영향 받을 수도 있는 모든 다른 각 사람에 대해, 바로 이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현존하는 악으로 둘러싸인 환경과, 신성한 운명의 완성이라는 영원한 목표 양쪽 관점에서, 이런 활기찬 사랑의 적응 전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률도 무저항에 대한 가르침도 교리나 교훈으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것들은 오직 실천함으로써만, **진리의 영**이 실천함으로써만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만 그것들을 납득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옛 종교와 새 종교 사이

believer's contact with them. This is the essence of true religion: that you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80:5.8 (1950.3) But the highest realization and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consist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pirit of the truth of the enduring and living reality of such a divine declaration. The true cosmic meaning of this rule of universal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in its spiritual realiz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conduct by the spirit of the Son to the spirit of the Father that indwells the soul of mortal man. And when such spirit-led mortals realize the true meaning of this golden rule, they are filled to overflowing with the assurance of citizenship in a friendly universe, and their ideals of spirit reality are satisfied only when they love their fellows as Jesus loved us all, and that is the reality of the realization of the love of God.

180:5.9 (1950.4) This same philosophy of the living flexibility and cosmic adaptability of divine truth to the individual requirements and capacity of every son of God, must be perceived before you can hope adequately to understand the Master's teaching and practice of nonresistance to evil. The Master's teaching is basically a spiritual pronouncement. Even the material implications of his philosophy cannot be helpfully considered apart from their spiritual correlations. The spirit of the Master's injunction consists in the nonresistance of all selfish reaction to the universe, coupled with the aggressive and progressive attainment of righteous levels of true spirit values: divine beauty, infinite goodness, and eternal truth — to know God and to become increasingly like him.

180:5.10 (1950.5) Love, unselfishness, must undergo a constant and living readaptative interpretation of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leading of the Spirit of Truth. Love must thereby grasp the ever-changing and enlarging concepts of the highest cosmic good of the individual who is loved. And then love goes on to strike this same attitude concerning all other individuals who could possibly be influenced by the growing and living relationship of one spirit-led mortal's love for other citizens of the universe. And this entire living adaptation of love must be effected in the light of both the environment of present evil and the eternal goal of the perfection of divine destiny.

180:5.11 (1950.6) And so must we clearly recognize that neither the golden rule nor the teaching of nonresistance can ever be properly understood as dogmas or precepts. They can only be comprehended by living them, by realizing their meanings in the living interpretation of the Spirit of Truth, who directs the loving contact of one human being with another.

180:5.12 (1951.1) And all this clearly indicates the

의 차이를 분명히 가리킨다. 옛 종교는 자기_희생을 가르쳤고; 새 종교는 오직 사회 봉사와 우주에 대한 납득이 통합되어, 자기_망각, 즉 증진된 자아_실현을 가르친다. 옛 종교는 두려움을_의식함으로써 자극받았으며; 새로운 천국 복음은, 진리의_확신, 즉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기질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자들의 인생 체험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아들의 특징인 자발적이고 관대하며 진지한 우정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경건하거나 신조에 충성을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또한 전통 또는 형식적 경배의 예식 체계도, 동료에 대한 참된 연민의 정의 결여를 보상할 수 없다.

difference between the old religion and the new. The old religion taught self-sacrifice; the new religion teaches only self-forgetfulness, enhanced self-realization in conjoined social service and universe comprehension. The old religion was motivated by fear-consciousness;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is dominated by truth-conviction, the spirit of eternal and universal truth. And no amount of piety or creedal loyalty can compensate for the absence in the life experience of kingdom believers of that spontaneous, generous, and sincere friendliness which characterizes the spirit-born sons of the living God. Neither tradition nor a ceremonial system of formal worship can atone for the lack of genuine compassion for one's fellows.

6. 떠나야 할 필요성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마태가 주님께 여러 질문을 한 후에, **주님**은 작별 강론을 계속하면서 말씀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은, 곧 너희에게 닥칠 일에 너희가 미리 대비해서, 심각한 실책을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권세자들은 다만 너희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기를 거절했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새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면, 그들이 너희를 거부할 때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에 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나의 때가 지금 이른 것 같이 너희 때가 이르게 될 경우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과, 내 영이 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난당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토록 분명히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였다. 대적하는 자가 바로 자기 집 식구 중에 있다고, 너희에게 누차 경고했다. 비록 천국의 이 복음이 신자 각 개인의 혼에 반드시 큰 평화를 가져올지라도, 인류가 전심으로 내 가르침을 기꺼이 믿을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관례를, 기꺼이 필사 인생을 살아가는 주요 목적으로 확립할 때까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됐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음을 보면서, ‘왜 우리를 떠납니까?’라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가 그런 질문을 마음 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새 선생이 너희 마

6. THE NECESSITY FOR LEAVING

180:6.1 (1951.2) After Peter, James, John, and Matthew had asked the Master numerous questions, he continued his farewell discourse by saying: “And I am telling you about all this before I leave you in order that you may be so prepared for what is coming upon you that you will not stumble into serious error. The authorities will not be content with merely putting you out of the synagogues; I warn you the hour draws near when they who kill you will think they are doing a service to God. And all of these things they will do to you and to those whom you lead into the kingdom of heaven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Father. They have refused to know the Father by refusing to receive me; and they refuse to receive me when they reject you, provided you have kept my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I am telling you in advance about these things so that, when your hour comes, as mine now has, you may be strengthened in the knowledge that all was known to me, and that my spirit shall be with you in all your suffering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have been talking so plainly to you from the very beginning. I have even warned you that a man’s foes may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Although this gospel of the kingdom never fails to bring great peace to the soul of the individual believer, it will not bring peace on earth until man is willing to believe my teaching wholeheartedly and to establish the practice of doing the Father’s will as the chief purpose in living the mortal life.

180:6.2 (1951.3) “Now that I am leaving you, seeing that the hour has come when I am about to go to the Father, I am surprised that none of you have asked me, Why do you leave us? Nevertheless, I know that you ask such questions in your hearts. I will speak to you plainly, as one friend to another. It is really profitable for you that I go away. If I go not away, the new teacher cannot come into your hearts. I must be divested of this mortal body and

음 속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펄사의 몸을 잃을 것이며, 내가 이 영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혼 속에서 살고 너희 영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전에, 높은 곳에 있는 내 거처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러 오면, 죄와 의의 차이점을 밝혀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에 관해 마음 속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우주에서 여러 거주지를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영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앞으로 될 일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영은 내게서 나갈 것이고, 내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는 이 영역 속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며; 그러므로 새로운 이 선생이 내 것을 맡아서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아주 잠시 동안만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잠시 말씀을 멈추는 동안,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주 잠시 동안만 너희를 떠날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돼도 그것은 얼마 동안뿐일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것과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알고 말씀했다: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됐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라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너희끼리 물어보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부활하게 되리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이 이뤄진 후에 그것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산통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일단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기뻐하여 고통을 곧 잊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게 되겠지만, 내가 곧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바로 이 생명의 계시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모든 간구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난 후로는, 내 이름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be restored to my place on high before I can send this spirit teacher to live in your souls and lead your spirits into the truth. And when my spirit comes to indwell you, he will illu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sin and righteousness and will enable you to judge wisely in your hearts concerning them.

180:6.3 (1951.4) “I have yet much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stand any more just now. Al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shall eventually guide you into all truth as you pass through the many abodes in my Father’s universe.

180:6.4 (1951.5) “This spirit will not speak of himself, but he will declare to you that which the Father has revealed to the Son, and he will even show you things to come; he will glorify me even as I have glorified my Father. This spirit comes forth from me, and he will reveal my truth to you. Everything which the Father has in this domain is now mine; wherefore did I say that this new teacher would take of that which is mine and reveal it to you.

180:6.5 (1952.1)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leave you for a short time. Afterward, when you again see me, I shall already be on my way to the Father so that even then you will not see me for long.”

180:6.6 (1952.2) While he paused for a moment, the apostles began to talk with each other: “What is this that he tells us?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leave you,’ and ‘When you see me again it will not be for long, for I will be on my way to the Father.’ What can he mean by this ‘little while’ and ‘not for long’? We cannot understand what he is telling us.”

180:6.7 (1952.3) And since Jesus knew they asked these questions, he said: “Do you inquire among yourselves about what I meant when I said that in a little while I would not be with you, and that, when you would see me again, I would be on my way to the Father? I have plainly told you that the Son of Man must die, but that he will rise again. Can you not then discern the meaning of my words? You will first be made sorrowful, but later on will you rejoice with many who will understand these things after they have come to pass. A woman is indeed sorrowful in the hour of her travail, but when she is once delivered of her child, she immediately forgets her anguish in the joy of the knowledge that a man has been born into the world. And so are you about to sorrow over my departure, but I will soon see you again, and then will your sorrow be turned into rejoicing, and there shall come to you a new revelation of the salvation of God which no man can ever take away from you. And all the worlds will be blessed in this same revelation of life in effecting the overthrow of death. Hitherto have you made all your requests in my Father’s name. After you see me again, you may also ask

“나는 여기 땅에서 너희에게 격언으로 가르쳤고 비유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오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었으나; **아버지**와 그의 나라에 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함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필사적 사람은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피조된 너희의 눈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영 성장에서 완전하게 되면,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말씀을 들은 열한 사도가 서로 말했다: “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만 어찌서 **주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열한 사도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개념에 오래 젖어 왔던 자신들의 관념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땅에 있는 나라가 영광스런 물질적 승리를 성취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천국 관념이 점점 더 많은 폐단을 낳게 됐다.

in my name, and I will hear you.

180:6.8 (1952.4) “Down here I have taught you in proverbs and spoken to you in parables. I did so because you were only children in the spirit; but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talk to you plainly concerning the Father and his kingdom. And I shall do this because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and desires to be more fully revealed to you. Mortal man cannot see the spirit Father; therefore have I come into the world to show the Father to your creature eyes. But when you have become perfected in spirit growth, you shall then see the Father himself.”

180:6.9 (1952.5) When the eleven had heard him speak, they said to each other: “Behold, he does speak plainly to us. Surely the Master did come forth from God. But why does he say he must return to the Father?” And Jesus saw that they did not even yet comprehend him. These eleven men could not get away from their long-nourished ideas of the Jewish concept of the Messiah. The more fully they believed in Jesus as the Messiah, the more troublesome became these deep-rooted notions regarding the glorious material triumph of the kingdom on earth.

제181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 180

유랜시아 책

18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1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섹션

소개

1. 마지막 위로의 말씀
2. 개인적인 작별 인사와 훈계

소개

열한 사도에게 작별 강론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체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가졌던 체험을 말씀했다. 친구이자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려 한다는 생각이, 마침내 이 갈릴리인들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자신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재회{再會} 또한 잠시뿐임을 쉽게 잊어버렸다. 사도와 수제자 가운데 다수는, 잠시 동안 (부활과 승천 사이의 짧은 기간)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잠깐 떠나 있다가, 그 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오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해석은, 그들의 선입관에 따른 믿음과 열렬한 희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일생 동안 소유했던 그들의 믿음과 소원 성취의 소망이 그렇게 어우러졌으므로, 강렬한 기대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기는,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작별 강론이 토의되고 그들의 정신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조용히 시키고, 최종 훈계와 경고를 전하기 시작했다.

PAPER 181
FINAL ADMONITIONS AND
WARNINGS

SECTIONS

Introduction

1. Last Words of Comfort
2. Farewell Personal Admonitions

INTRODUCTION

181:0.1 (1953.1)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rewell discourse to the eleven, Jesus visited informally with them and recounted many experiences which concerned them as a group and as individuals. At last it was beginning to dawn upon these Galileans that their friend and teacher was going to leave them, and their hope grasped at the promise that, after a little while, he would again be with them, but they were prone to forget that this return visit was also for a little while. Many of the apostles and the leading disciples really thought that this promise to return for a short season (the short interval between the resurrection and the ascension) indicated that Jesus was just going away for a brief visit with his Father, after which he would return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such an interpretation of his teaching conformed both with their preconceived beliefs and with their ardent hopes. Since their lifelong beliefs and hopes of wish fulfillment were thus agreed, it was not difficult for them to find an 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words which would justify their intense longings.

181:0.2 (1953.2) After the farewell discourse had been discussed and had begun to settle down in their minds, Jesus again called the apostles to order and began the impartation of his final admonitions and warnings.

1. 마지막 위로의 말씀

열한 사도가 자리에 앉은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육체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필사 본성의 껍데기에서 해방되고 나면,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는 다른 모든 신자 각자에게, 영 내주자{內住者}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모든 참된 신자의 혼 속에 영적 현현{顯現}을 이루게 된다.

“내가 너희 속에 살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 돌아오면, 너희를 이 생애 동안 더 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가장 높은 하늘에서 미래의 생애에 여러 거주지를 거치는 동안, 너희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계에서 사는 것은, 나태함과 이기적 편안함 속에서 영원히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진리, 및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각 장소는, 일종의 정류장, 즉 다음 단계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도록 고안된 생애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는, 신성한 신분을 달성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데, 거기서는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온전하게 돼간다.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가 나를 좇아오려거든, 내 교훈의 참뜻대로,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이상{理想}대로 살려고--곧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도록 해라. 이것을 하되,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육신 속에서의 내 평상시 생활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겨우 너희 몇 사람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선택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에 부어주게 되겠지만, 혼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이 새 선생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화되고 정화{淨化}될 것이며 위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그들 안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위로의 말을 주고려고 한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으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선물은 세상이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내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승리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깐 동안이나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는, 반드시 새 선생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고, 바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을 보거든,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1. LAST WORDS OF COMFORT

181:1.1 (1953.3) When the eleven had taken their seats, Jesus stood and addressed them: “As long as I am with you in the flesh, I can be but one individual in your midst or in the entire world. But when I have been delivered from this investment of mortal nature, I will be able to return as a spirit indweller of each of you and of all other believers in this gospel of the kingdom. In this way the Son of Man will become a spiritual incarnation in the souls of all true believers.

181:1.2 (1953.4) “When I have returned to live in you and work through you, I can the better lead you on through this life and guide you through the many abodes in the future life in the heaven of heavens. Life in the Father’s eternal creation is not an endless rest of idleness and selfish ease but rather a ceaseless progression in grace, truth, and glory. Each of the many, many stations in my Father’s house is a stopping place, a life designed to prepare you for the next one ahead. And so will the children of light go on from glory to glory until they attain the divine estate wherein they are spiritually perfected even as the Father is perfect in all things.

181:1.3 (1953.5) “If you would follow after me when I leave you, put forth your earnest efforts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y teachings and with the ideal of my life — the doing of my Father’s will. This do instead of trying to imitate my natural life in the flesh as I have, perforce, been required to live it on this world.

181:1.4 (1954.1)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but only a few of you have chosen fully to receive me.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but all men will not choose to receive this new teacher as the guide and counselor of the soul. But as many as do receive him shall be enlightened, cleansed, and comforted. And this Spirit of Truth will become in them a well of living water springing up into eternal life.

181:1.5 (1954.2) “And now, as I am about to leave you, I would speak words of comfort.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make these gifts not as the world gives — by measure — I give each of you all you will receive.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fearful. I have overcome the world, and in me you shall all triumph through faith. I have warned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be killed, but I assure you I will come back before I go to the Father, even though it be for only a little while. And after I have ascended to the Father, I will surely send the new teacher to be with you and to abide in your very hearts. And when you see all this come to pass, be not dismayed, but rather believe, inasmuch as

려 그 모든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믿으라. 나는 너희를 깊은 애정으로 사랑했으며,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떠나는 것은 **아버지** 뜻이다. 내 때가 왔다.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널리 흩어지고 많은 슬픔으로 낙심한 후에도, 이 진리 가운데 하나도 의심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을 적의 손에 남겨둔 채 각 사람이 자기 처소로 흩어질 때, 내 고독함을 알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너희의 고독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평안하고 더 풍성하게 평안하리라는 것을 말해 왔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겠으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고, 영원한 기쁨과 영구적 섬김에 이르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동료 일꾼들에게, 이 물질 세계의 기쁨이나 만족 같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 믿지 않는 유물론자와 운명론자는, 오직 두 가지 평화와 혼의 안락을 누리하고자 할 수 있는데: 필연적인 일에 맞서고 최악의 경우를 견디기로 결정한 확고한 결심으로 금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영구히 솟아나는 희망, 즉 결코 실현되지 못할 평화를 헛되이 고대하는 일에 계속 빠져있는 낙천주의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와 낙천주의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속에 있는 형제에게 주는 최고의 평화와는 아무 상관없다. **미가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녀에게 주는 평안은,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필사자 생애를 직접 살았을 때 그의 혼 속에 가득했던, 바로 그 평안이다. **예수**의 평안은,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움으로 승리를 획득한, **하나님**을 아는 각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다. **예수**의 정신이 누린 평안은, 신성한 **아버지**의 현명하고 인정어린 돌보심이 실체라는 것을 믿는, 인간의 절대 신앙 위에 세워졌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고생했고, “비탄의 사람”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얻기까지 했지만, 이 모든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 뜻을 성취하고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일생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늘 능력을 부여했던, 그런 확신으로 위로 받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 완수에 단호했고 불변했으며 완전히 헌신적이었지만, 무감각하고 냉담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유쾌한 면을 항상 추구했지만, 눈멀고 자기기만적인 낙천주의자가 아니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알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평안을 추종자들 각자에게 수여한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시종 일관 말씀할 수 있었다.

you knew it all beforehand. I have loved you with a great affection, and I would not leave you, but it is the Father's will. My hour has come.

181:1.6 (1954.3) “Doubt not any of these truths even after you are scattered abroad by persecution and are downcast by many sorrows. When you feel that you are alone in the world, I will know of your isolation even as, when you ar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place, leaving the Son of Man in the hands of his enemies, you will know of mine. But I am never alone; always is the Father with me. Even at such a time I will pray for you. And all of these things have I told you that you might have peac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triumphed in the world and shown you the way to eternal joy and everlasting service.”

181:1.7 (1954.4) Jesus gives peace to his fellow doers of the will of God but not on the order of the joys and satisfactions of this material world. Unbelieving materialists and fatalists can hope to enjoy only two kinds of peace and soul comfort: Either they must be stoics, with steadfast resolution determined to face the inevitable and to endure the worst; or they must be optimists, ever indulging that hope which springs eternal in the human breast, vainly longing for a peace which never really comes.

181:1.8 (1954.5) A certain amount of both stoicism and optimism are serviceable in living a life on earth, but neither has aught to do with that superb peace which the Son of God bestows upon his brethren in the flesh. The peace which Michael gives his children on earth is that very peace which filled his own soul when he himself lived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and on this very world. The peace of Jesus is the joy and satisfaction of a God-knowing individual who has achieved the triumph of learning fully how to do the will of God while liv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peace of Jesus' mind was founded on an absolute human faith in the actuality of the divine Father's wise and sympathetic overcare. Jesus had trouble on earth, he has even been falsely called the “man of sorrows,” but in and through all of these experiences he enjoyed the comfort of that confidence which ever empowered him to proceed with his life purpose in the full assurance that he was achieving the Father's will.

181:1.9 (1954.6) Jesus was determined, persistent, and thoroughly devoted to the accomplishment of his mission, but he was not an unfeeling and calloused stoic; he ever sought for the cheerful aspects of his life experiences, but he was not a blind and self-deceived optimist. The Master knew all that was to befall him, and he was unafraid. After he had bestowed this peace upon each of his followers, he could consistently say, “Let not your

게다가 **예수**의 평안은,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자신의 생애가, 온전히 지혜롭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강력한 영 **아버지**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안전하게 전면적으로 받고 있음을 완벽하게 믿는 아들이 갖는 평안과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필사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평화이지만, 믿는 인간의 마음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평화다.

2. 개인적인 작별 인사와 훈계

주님은 사도들에게 한 집단으로서 작별 지침을 주면서 마지막 훈계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이별의 축복과 함께, 각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적인 충고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기 위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마지막 만찬**에 참여할 때 처음 자리 잡았던 그대로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주님**이 식탁을 돌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으며, 각 사람은 **예수**께서 앞에 와서 말씀하는 동안 일어서 있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다: “**요한**아, 너는 내 막내 동생이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항상 내 곁에 있도록 한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너를 **안드레**가 지명했었다. 그 외에도, 너는 나를 위해 활동했고, 나의 이 세상 가족과 관련된 많은 일에서도 그런 수고를 계속해줘야겠다. **요한**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속한 사람을 내가 계속 돌보리라고 온전히 확신한다. 내가 육신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사명에 대해 그들이 지금 혼돈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모든 호의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 빛을 보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터인데, **요한**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환영하리라고 믿는다.

“또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이를 때, 내 가족에게 전할 말을 부탁할 수 있도록, 너는 내 곁에 있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육신으로 죽는 것 외에는 다 완성했고,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됐다.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내게 남긴 책임에 관해서는, 내가 사는 동안 이 일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해주시 바란다. 그리고 **요한**아,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너를 택한 것은, 네가 제일 젊고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때 너와 네 형제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가 우리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너는 과격하고 웅졸했지만, 무지하고 경솔한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리게 하라고 내게 원했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181:1.10 (1955.1) The peace of Jesus is, then, the peace and assurance of a son who fully believes that his career for time and eternity is safely and wholly in the care and keeping of an all-wise, all-loving, and all-powerful spirit Father. And this is, indeed, a peace which passes the understanding of mortal mind, but which can be enjoyed to the full by the believing human heart.

2. FAREWELL PERSONAL ADMONITIONS

181:2.1 (1955.2) The Master had finished giving his farewell instructions and imparting his final admonitions to the apostles as a group. He then addressed himself to saying good-bye individually and to giving each a word of personal advice, together with his parting blessing. The apostles were still seated about the table as when they first sat down to partake of the Last Supper, and as the Master went around the table talking to them, each man rose to his feet when Jesus addressed him.

181:2.2 (1955.3) To John, Jesus said: “You, John, are the youngest of my brethren. You have been very near me, and while I love you all with the same love which a father bestows upon his sons, you were designated by Andrew as one of the three who should always be near me. Besides this, you have acted for me and must continue so to act in many matters concerning my earthly family. And I go to the Father, John, having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ontinue to watch over those who are mine in the flesh. See to it that their present confusion regarding my mission does not in any way prevent your extending to them all sympathy, counsel, and help even as you know I would if I were to remain in the flesh. And when they all come to see the light and enter fully into the kingdom, while you all will welcome them joyously, I depend upon you, John, to welcome them for me.

181:2.3 (1955.4) “And now, as I enter upon the closing hours of my earthly career, remain near at hand that I may leave any message with you regarding my family. As concerns the work put in my hands by the Father, it is now finished except for my death in the flesh, and I am ready to drink this last cup. But as for the responsibilities left to me by my earthly father, Joseph, while I have attended to these during my life, I must now depend upon you to act in my stead in all these matters. And I have chosen you to do this for me, John, because you are the youngest and will therefore very likely outlive these other apostles.

181:2.4 (1955.5) “Once we called you and your brother sons of thunder. You started out with us strong-minded and intolerant, but you have changed much since you wanted me to call fire down upon

던 이후로 많이 변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더 많이 변해야겠다. 너는 내가 오늘 밤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의 사도가 돼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가르치는 일에 네 평생을 바쳐라.”

요한 세베대가 다락방에서 서 있을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먼저 배우게 되고, 그 후에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행복에 진실로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네 형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인간적 관심은, 호의, 이타적 섬김, 그리고 아낌없는 용서를 이해함으로써 촉진된다. 네가 젊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이가 체험을 대변하므로, 인간적인 어떤 일로도 실제적인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네가 항상 정당한 경외심을 갖기를 권한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쓰되, 특히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를 맺은 네 친구들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요한**아, 천국을 위하여 네가 얻고자 하는 혼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항상 명심해라.”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를 지나가면서, **주님**은 **가롯 유다**가 앉았던 자리 옆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배반자의 빈자리 옆에 서있는 동안 **예수**께서 짓는 슬픈 표정의 의미를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일찍 만찬을 먹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암시를 했지만, 그들의 회계원이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갔음을 **아마 안드레**는 알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도들은 모두 꿈도 꾸지 못했다. 매우 많은 일이 진행했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열심당 시몬**에게로 갔고, 그는 일어서서 훈계를 들었다: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너를 이 하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모든 형제도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천국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너는 아직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착한다. 네가 결국에는 영적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영웅적인 업적을 행하게 될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네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슬퍼한다.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면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내가 준 사도직을 네가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 나라의 대사로써 기꺼이 처신할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불같은 성격의 애국자가 눈물을

the heads of ignorant and thoughtless unbelievers. And you must change yet more. You should become the apostle of the new commandment which I have this night given you. Dedicate your life to teaching your brethren how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181:2.5 (1955.6) As John Zebedee stood there in the upper chamber, the tears rolling down his cheeks, he looked into the Master's face and said: “And so I will, my Master, but how can I learn to love my brethren more?” And then answered Jesus: “You will learn to love your brethren more when you first learn to love their Father in heaven more, and after you have become truly more interested in their welfare in time and in eternity. And all such human interest is fostered by understanding sympathy, unselfish service, and unstinted forgiveness. No man should despise your youth, but I exhort you always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fact that age oftentimes represents experience, and that nothing in human affairs can take the place of actual experience. Strive to live peaceably with all men, especially your friends in the brotherhood of the heavenly kingdom. And, John, always remember, strive not with the souls you would win for the kingdom.”

181:2.6 (1956.1) And then the Master, passing around his own seat, paused a moment by the side of the place of Judas Iscariot. The apostles were rather surprised that Judas had not returned before this, and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the significance of Jesus' sad countenance as he stood by the betrayer's vacant seat. But none of them, except possibly Andrew, entertained even the slightest thought that their treasurer had gone out to betray his Master, as Jesus had intimated to them earlier in the evening and during the supper. So much had been going on that, for the time being, they had quite forgotten about the Master's announcement that one of them would betray him.

181:2.7 (1956.2) Jesus now went over to Simon Zelotes, who stood up and listened to this admonition: “You are a true son of Abraham, but what a time I have had trying to make you a son of this heavenly kingdom. I love you and so do all of your brethren. I know that you love me, Simon, and that you also love the kingdom, but you are still set on making this kingdom come according to your liking. I know full well that you will eventually grasp the spiritual nature and meaning of my gospel, and that you will do valiant work in its proclamation, but I am distressed about what may happen to you when I depart. I would rejoice to know that you would not falter; I would be made happy if I could know that, after I go to the Father, you would not cease to be my apostle, and that you would acceptably deport yourself as an ambassador of the heavenly kingdom.”

181:2.8 (1956.3) Jesus had hardly ceased speaking to

뒤으면서 대답했을 때, 애써 말씀을 멈췄다: “**주님**, 내 충성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실패도 견뎌 냈고,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힘이 솟아나지만, 착한 친구여,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모른다. 나는 네 충성심과 헌신을 한 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도들처럼 너도 나를 위해 서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각오가 돼있음을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확실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 제자들이 싸우지 않으리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다. **시몬**아,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너는 그 진리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나와 천국에 대한 네 충성심에 대해서는 내가 우려하지 않지만, 내가 떠난 후 네가 내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실패했다는 것과, 천국에서 또 다른 영적 체제 업무를 다루는 현실에 너의 잘못된 생각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 네가 어찌하려느냐?”

시몬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씀을 계속했다: “사도들 중에서 마음으로 너보다 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너보다 더 당황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가 용기를 잃은 상태에서도 내 영은 네 안에 거할 것이며, 네 형제들도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갖는 시민신분과 **아버지**의 영적 나라에서 갖는 아들신분의 관계에 대해 내가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모두 깊이 새겨라. **시몬**아, 세상 권세에 대한 일시적 의무를 인식하는 동시에, 천국 형제관계에서 영적 봉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내 훈계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에 네 인생을 바치기 바란다. 네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세상 통치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충성과 경배를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이 세상 시민신분의 의무와 하늘에서 아들신분의 의무 사이에 충돌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시몬**아, 그리고 이제, 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을 떨쳐버린 후에 이 복음을 큰 능력으로 전파하게 될 때, 네가 낙심하는 동안에도 내가 항상 함께 했으며,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나 내 사도일 것이며, 내가 자진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더 완전히 복종시킨 후에야, 너는 내 사로서 수고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네가 더디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내가 네게 부여한 권세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

Simon Zelotes when the fiery patriot, drying his eyes, replied: “Master, have no fears for my loyalty. I have turned my back upon everything that I might dedicate my life to the establishment of your kingdom on earth, and I will not falter. I have survived every disappointment so far, and I will not forsake you.”

181:2.9 (1956.4) And then, laying his hand on Simon's shoulder, Jesus said: “It is indeed refreshing to hear you talk like that, especially at such a time as this, but, my good friend, you still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Not for one moment would I doubt your loyalty, your devotion; I know you would not hesitate to go forth in battle and die for me, as all these others would” (and they all nodded a vigorous approval), “but that will not be required of you. I have repeatedly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and that my disciples will not fight to effect its establishment. I have told you this many times, Simon, but you refuse to face the truth. I am not concerned with your loyalty to me and to the kingdom, but what will you do when I go away and you at last wake up to the realization that you have failed to grasp the meaning of my teaching, and that you must adjust your misconceptions to the reality of another and spiritual order of affairs in the kingdom?”

181:2.10 (1956.5) Simon wanted to speak further, but Jesus raised his hand and, stopping him, went on to say: “None of my apostles are more sincere and honest at heart than you, but not one of them will be so upset and disheartened as you, after my departure. In all of your discouragement my spirit shall abide with you, and these, your brethren, will not forsake you. Do not forget what I have taught you regarding the relation of citizenship on earth to sonship in the Father's spiritual kingdom. Ponder well all that I have said to you about rendering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at which is God's. Dedicate your life, Simon, to showing how acceptably mortal man may fulfill my injunction concerning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emporal duty to civil powers and spiritual service in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If you will be taught by the Spirit of Truth, never will there be conflict between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on earth and sonship in heaven unless the temporal rulers presume to require of you the homage and worship which belong only to God.

181:2.11 (1957.1) “And now, Simon, when you do finally see all of this, and after you have shaken off your depression and have gone forth proclaiming this gospel in great power, never forget that I was with you even through all of your season of discouragement, and that I will go on with you to the very end. You shall always be my apostle, and after you become willing to see by the eye of the spirit and more fully to yield your will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n will you return to labor as my ambassador, and no one shall take away

이다. 그러므로 **시몬**아, 한 번 더 네게 경고하겠는데,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하지만, 영으로 수고하는 자는, 지금 있는 천국에서 평안 및 기쁨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도래할 천국에서는 영생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네 손에 맡겨진 일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 **시몬**, 너는 저곳에 있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바라던,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을 너는 정말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변함없이 믿고, 내가 너에게 계시한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열심당 시몬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레위 마태**에게로 걸어가서 말씀했다: “사도회 {使徒會}의 제정 충당을 위해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라. 곧, 매우 곧, 너희가 모두 흩어질 것이며; 심지어 네 형제들 가운데 겨우 한 사람까지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를 너와 나누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때, 너는 스스로 새로운 동역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던 동안에는 둘 씩 짝지어 보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네가 충격에서 회복되고 나면, 너는 이 복음: 즉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필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세상 끝까지 혼자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그렇지만 **주님**, 누가 우리를 보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드레**가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레위**야, 그렇지 않다. **안드레**는 복음 전파에서 더 이상 너희를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 선생이 오는 날까지, 정말로 네 친구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그가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도록 **진리의 영**이 너희 각자를 멀리까지 안내할 것이다. 네가 세관에서 나를 처음 따랐던 날 이후로 네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애 있게 같이 지내는 형제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네게 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네 **유대인** 형제들 설득하기에 열심을 다 한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힘차게 돌아서라. **레위**야, 네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네가 형제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었다는 것이며; 그들은 모두 너를 사랑한다.” (열 명의 사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다.)

“**레위**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네 형제들 모르게 했던 네 염려와 희생과 수고를 나는 잘 알며,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그가 이곳에 없지만, 세리장이었던 네가, 여기서 천국 사자들과 함께 내 작별식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나는 네가 영의 눈으로 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란다. 새 선생이 네 마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그리고 대답하게 **사람의 아들**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믿었던 미움 받은 세금 징수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

from you the authority which I have conferred upon you, because of your slowness of comprehending the truths I have taught you. And so, Simon, once more I warn you that they who fight with the sword perish with the sword, while they who labor in the spirit achieve life everlasting in the kingdom to come with joy and peace in the kingdom which now is. And when the work given into your hands is finished on earth, you, Simon, shall sit down with me in my kingdom over there. You shall really see the kingdom you have longed for, but not in this life. Continue to believe in me and in that which I have revealed to you,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181:2.12 (1957.2)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o Simon Zelotes, he stepped over to Matthew Levi and said: “No longer will it devolve upon you to provide for the treasury of the apostolic group. Soon, very soon, you will all be scattered; you will not be permitted to enjoy the comforting and sustaining association of even one of your brethren. As you go onwar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you will have to find for yourselves new associates. I have sent you forth two and two during the times of your training, but now that I am leaving you, after you have recovered from the shock, you will go out alone,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proclaiming this good news: That faith-quickeners are the sons of God.”

181:2.13 (1957.3) Then spoke Matthew: “But, Master, who will send us, and how shall we know where to go? Will Andrew show us the way?” And Jesus answered: “No, Levi, Andrew will no longer direct you in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He will, indeed, continue as your friend and counselor until that day whereon the new teacher comes, and then shall the Spirit of Truth lead each of you abroad to labor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Many changes have come over you since that day at the customhouse when you first set out to follow me; but many more must come before you will be able to see the vision of a brotherhood in which gentile sits alongside Jew in fraternal association. But go on with your urge to win your Jewish brethren until you are fully satisfied and then turn with power to the gentiles. One thing you may be certain of, Levi: You have won the confidence and affection of your brethren; they all love you.” (And all ten of them signified their acquiescence in the Master's words.)

181:2.14 (1958.1) “Levi, I know much about your anxieties, sacrifices, and labors to keep the treasury replenished which your brethren do not know, and I am rejoiced that, though he who carried the bag is absent, the publican ambassador is here at my farewell gathering with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I pray that you may discern the meaning of my teaching with the eyes of the spirit. And when the new teacher comes into your heart, follow on as he will lead you

네 형제들이 --심지어 온 세상도-- 볼 수 있게 해 줘라. **레위**야, 내가 다른 **갈릴리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 **아버지**도 **아들**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네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 **마태** 너는 앞으로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의 교제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묵묵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야고보 세베대**에게로 걸어가서 말씀했다: “**야고보**야, 언젠가 너와 네 동생이 내게 와서 천국의 특전으로 높은 자리를 구했을 때, 내가 그런 명에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너희 둘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네가 그때에는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겪게 될 체험을 통해서 너는 곧 그런 수고에 준비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런 습성 때문에 네가 형제들을 화나게 했었다. 그들이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사역하는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너는 끝까지 참아라. 새 선생이 오면,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그에게서 배우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함과 나를 확고히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동정하는 아량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믿는 제자의 인간적 애정과 함께 신성한 위엄을 나타내는 일에, 네 생명을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와 네 동생 **요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는 행동의 자유뿐 아니라 용기도 포함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네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공격적인 태도에 맞춰서 현명함도 배워야 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제자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장엄한 순간이 도래하겠지만, 평범한 상황에서는,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네 힘이 닿는 한,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남아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혼들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라.”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은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 쪽으로 걸어가서, 충실한 협조자의 눈을 보면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 나라의 대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는 동안 나를 충실히 대변했다. 네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의심했고, 또 어떤 때에는 위험할 만큼 조심하기도 했지만, 너는 동역자들을 대하면서 여전히

and let your brethren see — even all the world — what the Father can do for a hated tax-gatherer who dared to follow the Son of Man and to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Even from the first, Levi, I loved you as I did these other Galileans. Knowing then so well that neither the Father nor the Son has respect of persons, see to it that you make no such distinctions among those who become believers in the gospel through your ministry. And so, Matthew, dedicate your whole future life service to showing all men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that, in the sight of God and in the fellowship of the kingdom, all men are equal, all believers are the sons of God.”

181:2.15 (1958.2) Jesus then stepped over to James Zebedee, who stood in silence as the Master addressed him, saying: “James, when you and your younger brother once came to me seeking preferment in the honors of the kingdom, and I told you such honors were for the Father to bestow, I asked if you were able to drink my cup, and both of you answered that you were. Even if you were not then able, and if you are not now able, you will soon be prepared for such a service by the experience you are about to pass through. By such behavior you angered your brethren at that time. If they have not already fully forgiven you, they will when they see you drink my cup. Whether your ministry be long or short, possess your soul in patience. When the new teacher comes, let him teach you the poise of compassion and that sympathetic tolerance which is born of sublime confidence in me and of perfect submission to the Father's will. Dedicate your life to the demonstration of that combined human affection and divine dignity of the God-knowing and Son-believing disciple. And all who thus live will reveal the gospel even in the manner of their death. You and your brother John will go different ways, and one of you may sit down with me in the eternal kingdom long before the other. It would help you much if you would learn that true wisdom embraces discretion as well as courage. You should learn sagacity to go along with your aggressiveness. There will come those supreme moments wherein my disciples will not hesitate to lay down their lives for this gospel, but in all ordinary circumstances it would be far better to placate the wrath of unbelievers that you might live and continue to preach the glad tidings. As far as lies in your power, live long on the earth that your life of many years may be fruitful in souls won for the heavenly kingdom.”

181:2.16 (1958.3) When the Master had finished speaking to James Zebedee, he stepped around to the end of the table where Andrew sat and, looking his faithful helper in the eyes, said: “Andrew, you have faithfully represented me as acting head of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Although you have sometimes doubted and at other times manifested dangerous timidity,

항상 진실로 옳게 행동했고 탁월한 공정성을 보여줬다. 너와 네 형제가 천국 사자로 임명받은 후에, 내가 너를 이 책임 받은 자들의 임시 우두머리로 지명한 것 외에는, 집단의 경영상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치적으로 움직여왔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체 의논을 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내 우주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갖 우주에서, 형제이자 아들들인 우리는 모든 영적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취급되지만, 모든 집단 관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확한 지도자를 임명한다. 우리 나라는 질서 있는 영역이며, 둘 이상의 의지 피조물이 협동해서 활동하며, 거기에는 항상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임명된다.

“그리고 안드레야, 지금은 내가 임명한 권위로 네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나를 직접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내가 곧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갈 것이므로, 이런 임시 경영 직무에 관계된 모든 책임에서 너를 풀어준다. 지금부터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획득한 것 이외에는, 형제들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네 형제들은 너에 대해 임의대로 판단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그들의 명확한 입법 조치로 네게 그 권한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후로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의 경영상 우두머리로서 가진 책임에서 면해 준 사실이, 곧 닥쳐올 시련의 기간, 즉 내가 육신에서 떠날 때부터, 너희의 마음 속에 거하게 되고, 결국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새 선생을 보내는 때까지의 기간에, 견고하고 사랑스런 손으로 네 형제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너의 도덕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도 경감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날 준비가 됐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시작되고 권한을 부여받았던, 모든 경영상 책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오직 영적 권세만 행사할 것이다.

“네 형제들이 네게 계속 그들의 지도자가 돼주기 원한다면, 내가 명하는데, 모든 현세적 및 영적 문제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믿는 여러 종류의 무리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우에 있게 사랑하는 실제 모습을 증진시키기에, 너의 여생을 바쳐라.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믿게 될 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서방에 있는 그리스인과 동방에 있는 아브넬에게, 충실하고 공명정대한 애정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여기 있는 내 사도들이 곧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속히 다가올 시련의 기간에 너는 그들을 결속시켜야 하며, 그 격렬한 시험 기간에, 너는 새 선

still, you have always been sincerely just and eminently fair in dealing with your associates. Ever since the ordination of you and your brethren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you have been self-governing in all group administrative affairs except that I designated you as the acting head of these chosen ones. In no other temporal matter have I acted to direct or to influence your decisions. And this I did in order to provide for leadership in the direction of all your subsequent group deliberations. In my universe and in my Father's universe of universes, our brethren-sons are dealt with as individuals in all their spiritual relations, but in all group relationships we unfailingly provide for definite leadership. Our kingdom is a realm of order, and where two or more will creatures act in co-operation, there is always provided the authority of leadership.

181:2.17 (1959.1) “And now, Andrew, since you are the chief of your brethren by authority of my appointment, and since you have thus served as my personal representative, and as I am about to leave you and go to my Father, I release you from all responsibility as regards these tempor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From now on you may exercise no jurisdiction over your brethren except that which you have earned in your capacity as spiritual leader, and which your brethren therefore freely recognize. From this hour you may exercise no authority over your brethren unless they restore such jurisdiction to you by their definite legislative action after I shall have gone to the Father. But this release from responsibility as the administrative head of this group does not in any manner lessen your moral responsibility to do everything in your power to hold your brethren together with a firm and loving hand during the trying time just ahead, those days which must intervene between my departure in the flesh and the sending of the new teacher who will live in your hearts, and who ultimately will lead you into all truth. As I prepare to leave you, I would liberate you from al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hich had its inception and authority in my presence as one among you. Henceforth I shall exercise only spiritual authority over you and among you.

181:2.18 (1959.2) “If your brethren desire to retain you as their counselor, I direct that you should, in all matters temporal and spiritual, do your utmost to promote peace and harmony among the various groups of sincere gospel believers. Dedicate the remainder of your life to promoting the practical aspects of brotherly love among your brethren. Be kind to my brothers in the flesh when they come fully to believe this gospel; manifest loving and impartial devotion to the Greeks in the West and to Abner in the East. Although these, my apostles, are soon going to be scatter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re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salvation of sonship with God, you are to hold

생인 **진리의 영**의 도래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내가 몸소 함께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믿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 **안드레**야,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업무가 네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과 조언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거라.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네 업무를 계속하고, 그 후에는 내가 이 사역을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많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알패오** 쌍둥이에게다가가서, 둘 사이에 선 후에 말씀했다: “애들아, 너희는 형제가 나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세 무리 가운데 하나다. 그 여섯 명 모두 육신으로 평화롭게 잘 일했지만, 너희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다. 어려운 때가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 너희는 너희와 형제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너희가 한때 천국의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대중을 다뤄야 할 일이 당분간 없겠지만, 낙담하지 말며; 너희가 필생과업을 마쳤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높은 곳으로 영접하겠고, 너희는 거기서 자신의 구원을 스랍 무리와 여러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평범한 것을 향상시키는 일에 너희의 일생을 바치도록 해라.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봉사를 위한 일에 얼마 동안 종사한 후, 얼마나 기쁘고 용기 있게 이전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줘라. 천국의 외형적 직무에 대한 당분간의 너희 역할이 완료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체험한 새로운 깨우침을 지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평범한 노동과 세속적인 수고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상하게 깨달으면서,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했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됐으며,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봉사가 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전에 너희와 함께 사도였던 동역자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거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너희의 일상 업무를 계속해라. 너희는 내 사도였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며, 천국에 들어오는 너희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로 갔고, 그는 선 채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빌립**아, 너는 내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대답했으며, 이제 아주 정직하기는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네 정신 속에 일어난, 그런 질문들 중에서 최종적인 것에 대해 대답해주려고 한다.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떠나고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너는 마음 속으로 항상 질문하곤 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너도 이미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갖춰졌다. **빌립**아, 너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네가 우리를 실

them together during the trying time just ahead, that season of intense testing during which you must learn to believe this gospel without my personal presence while you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the new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nd so, Andrew, though it may not fall to you to do the great works as seen by men, be content to be the teacher and counselor of those who do such things. Go on with your work on earth to the end, and then shall you continue this ministry in the eternal kingdom, for have I not many times told you that I have other sheep not of this flock?”

181:2.19 (1959.3) Jesus then went over to the Alpheus twins and, standing between them, said: “My little children, you are one of the three groups of brothers who chose to follow after me. All six of you have done well to work in peace with your own flesh and blood, but none have done better than you. Hard times are just ahead of us. You may not understand all that will befall you and your brethren, but never doubt that you were once called to the work of the kingdom. For some time there will be no multitudes to manage, but do not become discouraged; when your lifework is finished, I will receive you on high, where in glory you shall tell of your salvation to seraphic hosts and to multitudes of the high Sons of God. Dedicate your lives to the enhancement of commonplace toil. Show all men on earth and the angels of heaven how cheerfully and courageously mortal man can, after having been called to work for a season in the special service of God, return to the labors of former days. If, for the time being, your work in the outward affairs of the kingdom should be completed, you should go back to your former labors with the new enlightenment of the experience of sonship with God and with the exalted realization that, to him who is God-knowing,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mon labor or secular toil. To you who have worked with me, all things have become sacred, and all earthly labor has become a service even to God the Father. And when you hear the news of the doings of your former apostolic associates, rejoice with them and continue your daily work as those who wait upon God and serve while they wait. You have been my apostles, and you always shall be, and I will remember you in the kingdom to come.”

181:2.20 (1960.1) And then Jesus went over to Philip, who, standing up, heard this message from his Master: “Philip, you have asked me many foolish questions, but I have done my utmost to answer every one, and now would I answer the last of such questionings which have arisen in your most honest but unspiritual mind. All the time I have been coming around toward you, have you been saying to yourself, ‘What shall I ever do if the Master goes away and leaves us alone in the world?’ O, you of little faith! And yet you have almost as much as many of your brethren. You have been a good steward, Philip. You failed us

망시킨 것은 몇 번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사용되기도 했다. 너의 공식 사무장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소명 받은 그 일에—곧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더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 **빌립**아, 너는 항상 뭔가 보기를 원했는데, 네가 곧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물질적인 안목에서도 진실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내 말이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영적 선견(先見)의 복을 받게 되면, 네 일에 매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정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실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적에, 네 인생을 바치기 바란다. **빌립**아, 이 세상에는 네가 보여줬던 경향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득하니, 이 땅에서 네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라. 네가 큰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것이 신앙으로 완성된 후에, 내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고 필사 정신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네게 보여주면서,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동안, 너는 영의 나라에서 어린 아이처럼 되고, 내가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너를 앞으로 인도하도록 나를 용납해라. 이렇게 하여, 내가 세상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있을 때 이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로 갔다. **나다니엘**이 일어나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의 옆에 앉아서 말씀했다: “**나다니엘**아, 너는 내 사도가 된 후에 더 아량을 베푸는 법과 편견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네가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다. 너의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인해 동료들이 항상 깨우치게 되는 복이 네게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 너의 솔직함은, 새 형제 및 옛 형제들과 함께 사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지적 상태와 영적 성장에 맞도록 조정해야 함을 너는 배워야 한다. 성실성은 분별력과 합쳐질 때 천국의 일에서 가장 유용하다.

“네가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운다면, 더 영구적인 것을 이룰 수 있겠지만, 너와 똑같이 생각하는 형제를 찾으려고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제자가 이 세상에 혼자 있으면서 동료 신자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을 때에도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네 일생을 바쳐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끝까지 신실할 것을 알며, 저 높은 곳에 있는 내 나라의 더 확대된 봉사에, 언젠가 너를 초대할 것이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예수**께 질문했다: “나는 당신께서 이 천국 봉사에 나를 처음 불러주신 때부터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only a few times, and one of those failures we utilized to manifest the Father's glory. Your office of stewardship is about over. You must soon more fully do the work you were called to do — the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Philip, you have always wanted to be shown, and very soon shall you see great things. Far better that you should have seen all this by faith, but since you were sincere even in your material sightedness, you will live to see my words fulfilled. And then, when you are blessed with spiritual vision, go forth to your work, dedicating your life to the cause of leading mankind to search for God and to seek eternal realities with the eye of spiritual faith and not with the eyes of the material mind. Remember, Philip, you have a great mission on earth, for the world is filled with those who look at life just as you have tended to. You have a great work to do, and when it is finished in faith, you shall come to me in my kingdom, and I will take great pleasure in showing you that which eye has not seen, ear heard, nor the mortal mind conceived. In the meantime, become as a little child in the kingdom of the spirit and permit me, as the spirit of the new teacher, to lead you forward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in this way will I be able to do much for you which I was not able to accomplish when I sojourned with you as a mortal of the realm. And always remember,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181:2.21 (1960.2) Then went the Master over to Nathaniel. As Nathaniel stood up, Jesus bade him be seated and, sitting down by his side, said: “Nathaniel, you have learned to live above prejudice and to practice increased tolerance since you became my apostle. But there is much more for you to learn. You have been a blessing to your fellows in that they have always been admonished by your consistent sincerity. When I have gone, it may be that your frankness will interfere with your getting along well with your brethren, both old and new. You should learn that the expression of even a good thought must be mod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the hearer. Sincerity is most serviceable in the work of the kingdom when it is wedded to discretion.

181:2.22 (1961.1) “If you would learn to work with your brethren, you might accomplish more permanent things, but if you find yourself going off in quest of those who think as you do, in that event dedicate your life to proving that the God-knowing disciple can become a kingdom builder even when alone in the world and wholly isolated from his fellow believers. I know you will be faithful to the end, and I will some day welcome you to the enlarged service of my kingdom on high.”

181:2.23 (1961.2) Then Nathaniel spoke, asking Jesus this question: “I have listened to your teaching ever since you first called me to the service of this

말씀드리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다음에 예상할 수 없으며, 다른 형제들도 대개 똑같이 당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 “친구여, 네가 영적인 내 교훈의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네가 **유대인**의 전통 선입견으로 인해 너무 방해받기 때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에 맞춰서 내 복음을 해석하려는, 너의 고집스런 태도로 인해 너무 혼동됐기 때문이다.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너희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왔다. 너희의 정신을 개화시키고 너희의 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내 교훈과 내 생애를 통해서도 너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모든 선생들의 스승--곧 실제 체험--의 손으로 획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너를 기다리는 이 모든 새로운 체험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며,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새 선생이 오면, 이 땅에서 너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절에 너를 훈련시킴으로써, 그가 네게 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 모두를 보면서 말씀했다: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에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유한한 존재인 필사적 사람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은, 무한하고 신성하며 영원하다. **낙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점차 계속 달성해 가는, 영원한 시대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끝까지 담대하고 인내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로 갔으며, 그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도마**야, 너는 종중 신앙이 부족했으나, 아무튼, 네가 의심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생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새 교훈을 바라보는 너의 비평 방식을 네 형제들이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모두가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될 때, 너는 여전히 내 대사임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삶에서 영의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영으로 태어난 남녀의 체험 속에서 활기찬 진리가 작용하는데, 그런 진리가 현시화{顯示化}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의 비판적인 물질 정신이, 지적으로 의심하는 타성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도마**야, 네가 우리와 합세했던 것을 내가 기뻐하며, 잠시 동안 당황한 후에 천국 봉사를 계속하게 될 것을 안다. 너의 의심이 형제들을 난처하게 했지만,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신뢰하며, 내가 땅 끝까지라도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kingdom, but I honestly cannot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all you tell us. I do not know what to expect next, and I think most of my brethren are likewise perplexed, but they hesitate to confess their confusion. Can you help me?” Jesus, putting his hand on Nathaniel's shoulder, said: “My friend, it is not strange that you should encounter perplexity in your attempt to grasp the meaning of my spiritual teachings since you are so handicapped by your preconceptions of Jewish tradition and so confused by your persistent tendency to interpret my gospel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181:2.24 (1961.3) “I have taught you much by word of mouth, and I have lived my life among you. I have done all that can be done to enlighten your minds and liberate your souls, and what you have not been able to get from my teachings and my life, you must now prepare to acquire at the hand of that master of all teachers — actual experience. And in all of this new experience which now awaits you, I will go before you and the Spirit of Truth shall be with you. Fear not; that which you now fail to comprehend, the new teacher, when he has come, will reveal to you throughout the remainder of your life on earth and on through your training in the eternal ages.”

181:2.25 (1961.4) And then the Master, turning to all of them, said: “Be not dismayed that you fail to grasp the full meaning of the gospel. You are but finite, mortal men, and that which I have taught you is infinite, divine, and eternal. Be patient and of good courage since you have the eternal ages before you in which to continue your progressive attainment of the experience of becoming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Paradise is perfect.”

181:2.26 (1962.1) And then Jesus went over to Thomas, who, standing up, heard him say: “Thomas, you have often lacked faith; however, when you have had your seasons with doubt, you have never lacked courage. I know well that the false prophets and spurious teachers will not deceive you. After I have gone, your brethren will the more appreciate your critical way of viewing new teachings. And when you all are scattere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times to come, remember that you are still my ambassador. Dedicate your life to the great work of showing how the critical material mind of man can triumph over the inertia of intellectual doubting when faced by the demonstration of the manifestation of living truth as it operates in the experience of spirit-born men and women who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ir lives, and wh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omas, I am glad you joined us, and I know, after a short period of perplexity, you will go on in the service of the kingdom. Your doubts have perplexed your brethren, but they have never troubled me. I have confidence in you, and I will go before you even to the uttermost parts

그 후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로 갔고,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동안 서 있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네 인생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네가 여러 해 동안 나와 그토록 가까이 교제했음에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무슨 체험을 해야, 네 입술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배우게 되겠느냐? 너의 경솔한 말과 뻔뻔스런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이 약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허물에도, 형제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단점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에 대한 내 애정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내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네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 오늘밤에 겪을 체험에서 반드시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 모여 있는 네 모든 형제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오늘 밤에 너희 모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목자가 죽음 당하고 양들이 멀리 흩어질 것이라'고 써어있음을 너희가 안다. 내가 없을 때, 너희 가운데 더러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의심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와 약속하겠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잠시 동안 돌아올 것이고, 그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당신으로 인해 내 형제들이 모두 의심에 사로잡힐지라도, 나만은 당신이 하시는 어떤 것으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격앙된 감정으로 떨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서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서너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는 나와 나눈 평화로운 교제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심한 고난과 깊은 비애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네게 꼭 필요한 이 교훈을 참되게 배우고 난 후에는, 비록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지라도, 그리고 혹시,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면서 사랑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값을 지불하는 일에 나를 따르게 될지라도, 네 형제들을 격려해야 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친 네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약속을 잊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겪어야만 할 일에 대해, 너희 각자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밤에도 **아버지**께 간청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of the earth."

181:2.27 (1962.2) Then the Master went over to Simon Peter, who stood up as Jesus addressed him: "Peter, I know you love me, and that you will dedicate your life to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to Jew and gentile, but I am distressed that your years of such close association with me have not done more to help you think before you speak. What experience must you pass through before you will learn to set a guard upon your lips? How much trouble have you made for us by your thoughtless speaking, by your presumptuous self-confidence! And you are destined to make much more trouble for yourself if you do not master this frailty. You know that your brethren love you in spite of this weakness, and you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is shortcoming in no way impairs my affection for you, but it lessens your usefulness and never ceases to make trouble for you. But you will undoubtedly receive great help from the experience you will pass through this very night. And what I now say to you, Simon Peter, I likewise say to all your brethren here assembled: This night you will all be in great danger of stumbling over me. You know it is written, 'The shepherd will be smitten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abroad.' When I am absent, there is great danger that some of you will succumb to doubts and stumble because of what befalls me. But I promise you now that I will come back to you for a little while, and that I will then go before you into Galilee."

181:2.28 (1962.3) Then said Peter, placing his hand on Jesus' shoulder: "No matter if all my brethren should succumb to doubts because of you, I promise that I will not stumble over anything you may do. I will go with you and, if need be, die for you."

181:2.29 (1962.4) As Peter stood there before his Master, all atremble with intense emotion and overflowing with genuine love for him, Jesus looked straight into his moistened eyes as he said: "Pet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is night the cock will not crow until you have denied me three or four times. And thus what you have failed to learn from peaceful association with me, you will learn through much trouble and many sorrows. And after you have really learned this needful lesson, you should strengthen your brethren and go on living a life dedicated to preaching this gospel, though you may fall into prison and, perhaps, follow me in paying the supreme price of loving service in the building of the Father's kingdom."

181:2.30 (1962.5) "But remember my promise: When I am raised up, I will tarry with you for a season before I go to the Father. And even this night will I make supplication to the Father that he strengthen each of you for that which you must now so soon pass through. I love you all with the love wherewith

사랑하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른 후에, 그들은 감람
산에 있는 야영지를 향해 출발했다.

the Father loves me, and therefore should you
henceforth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181:2.31 (1962.6)} And then,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departed for the camp on the Mount of
Olives.

제182편. 겿세마네에서

⇨ 181

유랜시아 책

183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2편
겿세마네에서

섹션

소개

1. 마지막 합심 기도
2. 배반하기 전 마지막 시간
3. 겿세마네에 홀로 계심

PAPER 182
IN GETHSEMAN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Last Group Prayer
2. Last Hour Before the Betrayal
3. Alone in Gethsemane

소개

예수께서 열한 사도를 이끌고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겿세마네** 야영지로 돌아온 것은 이 목요일 밤 열 시쯤이었다. **요한 마가**는 동산에 있던 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를 주시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다. **요한**은,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는 동안 몇 시간의 쉴 틈을 얻었지만,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재빨리 외투를 걸친 후에, 그들을 따라 성을 빠져나갔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겿세마네 공원** 근처에 그들이 사적(私的)으로 설치한 야영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이날 밤과 다음 날 내내 **주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므로 모든 일에 증인이 됐으며, 이때부터 십자가 형벌이 있던 시간까지 **주님**이 말쑥한 것을 많이 듣게 됐다.

예수와 열한 사도가 야영지로 돌아오는 동안,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궁금해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암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으며, **가롯 유다**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야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드러내어 언급하기를 피했으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유다**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들이 모두 **안드레**에게 물려가서,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자,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INTRODUCTION

^{182:0.1 (1963.1)} IT WAS about ten o'clock this Thursday night when Jesus led the eleven apostles from the home of Elijah and Mary Mark on their way back to the Gethsemane camp. Ever since that day in the hills, John Mark had made it his business to keep a watchful eye on Jesus. John, being in need of sleep, had obtained several hours of rest while the Master had been with his apostles in the upper room, but on hearing them coming downstairs, he arose and, quickly throwing a linen coat about himself, followed them through the city, over the brook Kidron, and on to their private encampment adjacent to Gethsemane Park. And John Mark remained so near the Master throughout this night and the next day that he witnessed everything and overheard much of what the Master said from this time on to the hour of the crucifixion.

^{182:0.2 (1963.2)} As Jesus and the eleven made their way back to camp, the apostles began to wonder about the meaning of Judas's prolonged absence, and they spoke to one another concerning the Master's prediction that one of them would betray him, and for the first time they suspected that all was not well with Judas Iscariot. But they did not engage in open comment about Judas until they reached the camp and observed that he was not there, waiting to receive them. When they all besieged Andrew to know what had become of

만, 우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뿐이다.

Judas, their chief remarked only, “I do not know where Judas is, but I fear he has deserted us.”

1. 마지막 합심 기도

야영지에 도착한 다음 잠시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친구와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런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 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감람산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임명받던 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무릎 꿇도록 명했으며;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장엄한 모습이 된 그들 한 가운데 선 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내 시간이 이르렀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내게 속한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며, 하나님의 신앙 아들이 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아버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내 피조물이 알아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높여드렸고 내게 맡기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지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일이 거의 끝났으며; 육체 속의 내 생명을 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 내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바른 편에 한 번 더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모든 생명이 아버지 손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소유이고 내게 주셨으며, 나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면서 저들과 함께 살았고, 저들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았던 생애가 내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내 친구요 대사인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즉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려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육신 속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대변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간 후에 이 세상에 나를 대변하도록, 세상에서 택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속했고; 아버지께서

1. THE LAST GROUP PRAYER

182:1.1 (1963.3) A few moments after arriving at camp, Jesus said to them: “My friends and brethren, my time with you is now very short, and I desire that we draw apart by ourselves while we pray to our Father in heaven for strength to sustain us in this hour and henceforth in all the work we must do in his name.”

182:1.2 (1963.4)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led the way a short distance up on Olivet, and in full view of Jerusalem he bade them kneel on a large flat rock in a circle about him as they had done on the day of their ordination; and then, as he stood there in the midst of them glorified in the mellow moonlight, he lifted up his eyes toward heaven and prayed:

182:1.3 (1963.5) “Father, my hour has come; now glorify your Son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I know that you have given me full authority over all living creatures in my realm, and I will give eternal life to all who will become faith sons of God.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my creatures should know you as the only true God and Father of all, and that they should believe in him whom you sent into the world. Father, I have exalted you on earth and have accomplished the work which you gave me to do. I have almost finished my bestowal upon the children of our own creation; there remains only for me to lay down my life in the flesh. And now, O my Father, glorify me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is world was and receive me once more at your right hand.

182:1.4 (1964.1) “I have manifested you to the men whom you chose from the world and gave to me. They are yours — as all life is in your hands — you gave them to me, and I have lived among them, teaching them the way of life, and they have believed. These men are learning that all I have comes from you, and that the life I live in the flesh is to make known my Father to the worlds. The truth which you have given to me I have revealed to them. These, my friends and ambassadors, have sincerely willed to receive your word. I have told them that I came forth from you, that you sent me into this world, and that I am about to return to you. Father, I do pray for these chosen men. And I pray for them not as I would pray for the world, but as for those whom I have chosen out of the world to represent me to the world after I have returned to your work, even as I have represented you in this world during my sojourn in the flesh. These men are mine; you gave them to me; but all things which are mine are ever yours, and all that which was yours you have now caused to be mine. You

저들을 내게 주셨으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히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서 높임 받으셨고,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명예롭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업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서 대변하도록 이 사람들을 남겨둬야만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칠 준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신실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친구인 이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새 선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들 곁에 있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내게 열두 사람을 주셨고, 내가 저희를 다 지켰으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나는 우리가 저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저들을 입증했고; 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저들이 많은 수난을 당해야 하는 동안, 저들이 하늘 나라에서 갖는 아들신분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겠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치 않고, 오직 세상의 악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저들에게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정화{淨化}되라고 저희를 격려하도록, 저들을 위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살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내 일생을 거룩히 바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떠난 후에 이 형제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며;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심을, 저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이 열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믿든지 또는 저들이 장차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차후에 복음을 믿게 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믿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둘 다 저들 안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 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며, 내가 이룬 영광과 진리의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 신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

have been exalted in me, and I now pray that I may be honored in these men. I can no longer be in this world; I am about to return to the work you have given me to do. I must leave these men behind to represent us and our kingdom among men. Father, keep these men faithful as I prepare to yield up my life in the flesh. Help these, my friends, to be one in spirit, even as we are one. As long as I could be with them, I could watch over them and guide them, but now am I about to go away. Be near them, Father, until we can send the new teacher to comfort and strengthen them.

182:1.5 (1964.2) “You gave me twelve men, and I have kept them all save one, the son of revenge, who would not have further fellowship with us. These men are weak and frail, but I know we can trust them; I have proved them; they love me, even as they reverence you. While they must suffer much for my sake, I desire that they should also be filled with the joy of the assurance of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I have given these men your word and have taught them the truth. The world may hate them, even as it has hated me, but I do not ask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only that you keep them from the evil in the world.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And as you sent me into this world, even so am I about to send these men into the world. For their sakes I have lived among men and have consecrated my life to your service that I might inspire them to be purified through the truth I have taught them and the love I have revealed to them. I well know, my Father, that there is no need for me to ask you to watch over these brethren after I have gone; I know you love them even as I, but I do this that they may the better realize the Father loves mortal men even as does the Son.

182:1.6 (1964.3) “And now, my Father, I would pray not only for these eleven men but also for all others who now believe, or who may hereafter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through the word of their future ministry. I want them all to be one, even as you and I are one.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and I desire that these believers likewise be in us; that both of our spirits indwell them. If my children are one as we are one, and if they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them, all men will then believe that I came forth from you and be willing to receive the revelation of truth and glory which I have made.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revealed to these believers. As you have lived with

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도 육체 속에서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듯이, 나도 저들과 하나가 됐고, 새 선생도 저들과 함께, 그리고 저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함은, **아들**이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리 하심과, **아버지**께서 나와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심을, 육체 속의 내 형제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곧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낙원**에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굴욕을 당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해서,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시간세계에서 뿌려놓은 씨앗을 영원한 세계로 거둬들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저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세우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세상은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이 신자들에게도 **아버지**를 알게 했으며, 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하오니-- 세상에서 저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열한 사도는, **예수** 곁에서 동그렇게 모여 무릎 꿇은 채 몇 분 동안 있었고, 일어난 후에는 가까이 있는 아영지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 됨이 이뤄지도록 기도했지만, 획일성을 바라지는 않았다. 죄는 악한 타성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정의는 영원한 진리의 살아있는 실체들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영들이 점진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창조적 기질을 육성한다. 믿는 **아들**과 신성한 **아버지**의 영적 교제에는, 결정적인 교리도, 집단의식 같은 분파적 우월성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이미 증거 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것은 정말로 육체 속에서 완수한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말씀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더 계시해 달라는 간청을 받았을 때, 밝히신 말씀은 오직,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이런 **아버지**의 이름은 매우 확실히 계시됐으므로, 육신화 한 **아버지**였던 **주님**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수(生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me in spirit, so have I lived with them in the flesh. As you have been one with me, so have I been one with them, and so will the new teacher ever be one with them and in them. And all this have I done that my brethren in the flesh may know that the Father loves them even as does the Son, and that you love them even as you love me. Father, work with me to save these believers that they may presently come to be with me in glory and then go on to join you in the Paradise embrace. Those who serve with me in humiliation, I would have with me in glory so that they may see all you have given into my hands as the eternal harvest of the seed sowing of tim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 long to show my earthly brethren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founding of this world. This world knows very little of you, righteous Father, but I know you, and I have made you known to these believers, and they will make known your name to other generations. And now I promise them that you will be with them in the world even as you have been with me — even so.”

182:1.7 (1965.1) The eleven remained kneeling in this circle about Jesus for several minutes before they arose and in silence made their way back to the near-by camp.

182:1.8 (1965.2) Jesus prayed for *unity* among his followers, but he did not desire uniformity. Sin creates a dead level of evil inertia, but righteousness nourishes the creative spirit of individual experience in the living realities of eternal truth and in the progressive communion of the divine spirits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spiritual fellowship of the believer-son with the divine Father there can never be doctrinal finality and sectarian superiority of group consciousness.

182:1.9 (1965.3) The Master, during the course of this final prayer with his apostles, alluded to the fact that he had manifested the Father's *name* to the world. And that is truly what he did by the revelation of God through his perfected life in the flesh. The Father in heaven had sought to reveal himself to Moses, but he could proceed no further than to cause it to be said, “I AM.” And when pressed for further revelation of himself, it was only disclosed, “I AM that I AM.” But when Jesus had finished his earth life, this name of the Father had been so revealed that the Master, who was the Father incarnate, could truly say:

182:1.10 (1965.4) I am the bread of life.

182:1.11 (1965.5) I am the living water.

182:1.12 (1965.6)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이다.

나는 끝없는 생명의 실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한한 완전성에 이르는 통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존의 비결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내 유한한 자녀들의 무한한 아버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들이다.

나는 살아있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나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다리다.

나는 시간과 영원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모든 세대에게 확장시켰다. 신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는 만큼, 영원한 진리가 그의 이름을 늘 확장하여 드러낸다.

182:1.13 (1965.7) I am the desire of all ages.

182:1.14 (1965.8) I am the open door to eternal salvation.

182:1.15 (1965.9) I am the reality of endless life.

182:1.16 (1965.10) I am the good shepherd.

182:1.17 (1965.11) I am the pathway of infinite perfection.

182:1.18 (1965.12)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182:1.19 (1965.13) I am the secret of eternal survival.

182:1.20 (1965.14)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182:1.21 (1965.15) I am the infinite Father of my finite children.

182:1.22 (1965.16) I am the true vine; you are the branches.

182:1.23 (1965.17) I am the hope of all who know the living truth.

182:1.24 (1965.18) I am the living bridge from one world to another.

182:1.25 (1965.19) I am the living link between time and eternity.

182:1.26 (1965.20) Thus did Jesus enlarge the living revelation of the name of God to all generations. As divine love reveals the nature of God, eternal truth discloses his name in ever-enlarging proportions.

2. 배반하기 전 마지막 시간

야영지에 돌아왔을 때, 유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도들은 크게 충격 받았다. 열한 사도가 배신한 동료 사도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는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들이 며칠간 유다를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과, 그가 주님을 적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즐거워하던 예수의 태도는 사라졌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슬픔에 잠기기까지 했다. 크게 동요하는 사도들은,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직접 요청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 및 요한 마가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님은 열한 사도에게 마지막 말씀을 했다: “내 친구들아, 가서 쉬어라. 내일 일을 위해 단단히 각오해라.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후, 그들

2. LAST HOUR BEFORE THE BETRAYAL

182:2.1 (1966.1) The apostles were greatly shocked when they returned to their camp and found Judas absent. While the eleven were engaged in a heated discussion of their traitorous fellow apostle, David Zebedee and John Mark took Jesus to one side and revealed that they had kept Judas under observation for several days, and that they knew he intended to betray him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Jesus listened to them but only said: “My friends, nothing can happen to the Son of Man unless the Father in heaven so wills.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salvation of men.”

182:2.2 (1966.2) The cheerful attitude of Jesus was waning. As the hour passed, he grew more and more serious, even sorrowful. The apostles, being much agitated, were loath to return to their tents even when requested to do so by the Master himself. Returning from his talk with David and John, he addressed his last words to all eleven, saying: “My friends, go to your rest. Prepare yourselves for the work of tomorrow. Remember, we should all submit ourselves to the will of the

에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손짓했지만, 그들이 모두 떠나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불러서 말씀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기 바란다.”

사도들이 잠들게 된 것은, 오직 말 그대로 기진맥진했기 때문이었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열심당 시몬**이 그들을 자기 천막으로 데려갔고, 거기에 숨겨둔 칼과 다른 무기를 각자에게 나눠줬다. **나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무기를 받아서 몸에 지녔다. **나다니엘**은 무장하기를 거절하면서 말했다: “형제들아, **주님**께서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칼로 싸워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우리에게 칼을 사용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전능한 능력을 봤고, 원하신다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직접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적과 싸우지 않으신다면, 그런 과정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다니엘**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자기 칼을 **열심당 시몬**에게 돌려줬다. 그리하여 아홉 명만 무장한 채 각자 잠자리로 흩어졌다.

유다가 배신자인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도들은 잠시 정신 속에서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도 도중에 말씀한,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가 자기들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눈뜨게 됐다.

여덟 사도가 마침내 각자 천막으로 돌아간 후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서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다윗 세메대**에게, “네 심부름꾼 중에서 가장 빠르고 믿을만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한때 **예루살렘**과 **벧새다**를 오가며 하룻밤 사이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지시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넬**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전해라: **주님**께서는 평안의 인사를 전했고, 적의 손에 붙잡힐 때가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를 죽이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잠시 나타날 것이며, 새 생명이 당신의 마음에 내주하기 위하여 올 때까지,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족할 만큼 **야곱**이 이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게 되자,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면서 말씀했다: “**야곱**아, 누가 네게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 보이지 않는 사자{使者}가 네 옆에서 함께 달려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기거하는 **그리스인** 방문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돌아서서

Father in heaven. My peace I leave with you.” And having thus spoken, he motioned them to their tents, but as they went, he called to Peter, James, and John, saying, “I desire that you remain with me for a little while.”

182:2.3 (1966.3) The apostles fell asleep only because they were literally exhausted; they had been running short on sleep ever since their arrival in Jerusalem. Before they went to their separate sleeping quarters, Simon Zelotes led them all over to his tent, where were stored the swords and other arms, and supplied each of them with this fighting equipment. All of them received these arms and girded themselves therewith except Nathaniel. Nathaniel, in refusing to arm himself, said: “My brethren, the Master has repeatedly told us tha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and that his disciples should not fight with the sword to bring about its establishment. I believe this; I do not think the Master needs to have us employ the sword in his defense. We have all seen his mighty power and know that he could defend himself against his enemies if he so desired. If he will not resist his enemies, it must be that such a course represents his attempt to fulfill his Father’s will. I will pray, but I will not wield the sword.” When Andrew heard Nathaniel’s speech, he handed his sword back to Simon Zelotes. And so nine of them were armed as they separated for the night.

182:2.4 (1966.4) Resentment of Judas’s being a traitor for the moment eclipsed everything else in the apostles’ minds. The Master’s comment in reference to Judas, spoken in the course of the last prayer, opened their eyes to the fact that he had forsaken them.

182:2.5 (1966.5) After the eight apostles had finally gone to their tents, and while Peter, James, and John were standing by to receive the Master’s orders, Jesus called to David Zebedee, “Send to me your most fleet and trustworthy messenger.” When David brought to the Master one Jacob, once a runner on the overnight messenger service between Jerusalem and Bethsaida, Jesus, addressing him, said: “In all haste, go to Abner at Philadelphia and say: ‘The Master sends greetings of peace to you and says that the hour has come when he wi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who will put him to death, but that he will rise from the dead and appear to you shortly, before he goes to the Father, and that he will then give you guidance to the time when the new teacher shall come to live in your hearts.’” And when Jacob had rehearsed this message to the Master’s satisfaction, Jesus sent him on his way, saying: “Fear not what any man may do to you, Jacob, for this night an unseen messenger will run by your side.”

182:2.6 (1967.1) Then Jesus turned to the chief of the visiting Greeks who were encamped with them,

말씀했다: “형제여,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했으니, 곧 일어나게 될 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들, 즉 제사장과 **유대인** 관리들의 선동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겠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부활해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형제들을 격려해 줘라.”

일상적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주님**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개인 인사를 드리곤 했지만, 이날 저녁에는 **유다**의 탈퇴에 대한 갑작스런 깨달음에 너무 몰두하고, **주님**의 고별 기도의 유별난 성향에 너무 압도되어, 그의 작별 인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걸을 떠나는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안드레**야, 내가 이 잔을 마신 후에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니, 형제들을 격려해라. 네게 평안이 있으라.”

밤이 이미 매우 깊었으므로, 그 밤에 특별한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악의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을 청했다. **유월절** 예비일(豫備日) 정오 이후에는 어떤 세속적인 일도 결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체포하려 이른 아침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바로 그 밤에 오리라는 것을,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만 알았다.

다윗은 그날 밤에,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로 통하는 오솔길 위쪽에 파수꾼을 배치했고, 그 동안에 **요한 마가**는 **기드론** 옆에서 **겔세마네**로 올라오는 길을 감시했다. **다윗**은 스스로 부과한 감시 임무를 직접 수행하려 나가기 전에 **예수**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봉사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형제들이 당신의 사도이지만, 나는 꼭 이뤄져야만 할 비교적 작은 일들을 기쁘게 했고, 당신이 떠나시면 진심으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다: “**다윗**아, 애야, 다른 사람들은 지시 받은 일을 했지만, 네가 한 이 일은 자진해서 한 것이었고, 나는 너의 헌신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너 역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솔길 위쪽으로 감시하러 떠나면서 **예수**께 말했다: “저, **주님**, 내가 당신 가족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었는데, 오늘 밤에 **여리고**에 있다는 전갈을 받았습시다. 그들이 밤에 올라오기에는 길이 험악해서 위험할 것이므로,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오직, “**다윗**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갔을 때, **요한 마**

and said: “My brother, be not disturbed by what is about to take place since I have already forewarned you. The Son of Man will be put to death at the instigation of his enemies,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Jews, but I will rise to be with you a short time before I go to the Father. And when you have seen all this come to pass, glorify God and strengthen your brethren.”

182:2.7 (1967.2) In ordinary circumstances the apostles would have bidden the Master a personal good night, but this evening they were so preoccupied with the sudden realization of Judas's desertion and so overcome by the unusual nature of the Master's farewell prayer that they listened to his good-bye salutation and went away in silence.

182:2.8 (1967.3) Jesus did say this to Andrew as he left his side that night: “Andrew, do what you can to keep your brethren together until I come again to you after I have drunk this cup. Strengthen your brethren, seeing that I have already told you all. Peace be with you.”

182:2.9 (1967.4) None of the apostles expected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to happen that night since it was already so late. They sought sleep that they might ri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be prepared for the worst. They thought that the chief priests would seek to apprehend their Master early in the morning as no secular work was ever done after noon on the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Only David Zebedee and John Mark understood that the enemies of Jesus were coming with Judas that very night.

182:2.10 (1967.5) David had arranged to stand guard that night on the upper trail which led to the Bethany-Jerusalem road, while John Mark was to watch along the road coming up by the Kidron to Gethsemane. Before David went to his self-imposed task of outpost duty, he bade farewell to Jesus, saying: “Master, I have had great joy in my service with you. My brothers are your apostles, but I have delighted to do the lesser things as they should be done, and I shall miss you with all my heart when you are gone.” And then said Jesus to David: “David, my son, others have done that which they were directed to do, but this service have you done of your own heart, and I have not been unmindful of your devotion. You, too, shall some day serve with me in the eternal kingdom.”

182:2.11 (1967.6) And then, as he prepared to go on watch by the upper trail, David said to Jesus: “You know, Master, I sent for your family, and I have word by a messenger that they are tonight in Jericho. They will be here early tomorrow forenoon since it would be dangerous for them to come up the bloody way by night.” And Jesus, looking down upon David, only said: “Let it be so, David.”

182:2.12 (1967.7) When David had gone up Olivet, John Mark took up his vigil near the road which ran

가는 **예루살렘** 쪽으로 흐르는 개울 옆 길 가까이 서 땅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오직 **예수** 가까이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감시하려고 했다. **다윗**이 그를 떠난 후 조금 있다가,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가는 것을 **요한 마가**가 봤으며, 그는 헌신하러는 마음과 뒤섞인 호기심에 압도되어, 망보던 자리를 떠나서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유다**와 무장한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타나기 전에 그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주님의 야영지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롯 유다**는 성전 경비 대장과 논의했는데, 그는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배반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부하들을 모아서 출동할 준비를 갖추었다.

3. 겟세마네에 홀로 계심

야영지 주변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조용해진 뒤에, **예수**께서는 전에 종종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류하던 근처 골짜기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다. 세 사도는 그가 무척 우울한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님**이 그토록 근심과 슬픔에 잠긴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전혀 없었다. **주님**이 기도하던 곳에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동안, 거기에 앉아서 자기와 함께 깨어 있다고 세 명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을 마칠 시간이 됐음을 알며, 그것을 피하려함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세 사도에게로 갔으며,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있는 것을 봤다. **예수**께서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했다: “도대체!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있을 수 없느냐? 내 혼이 죽게 될 정도로 심히 슬퍼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동무가 되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세 사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주님**은 다시 혼자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도 있음을 알지만--곧 **아버지**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알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며, 이것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힘 있는 천사 하나가 그의 옆으로 내려와서 그에게 말하면서 손을 대고 힘을 북돋았다.

예수께서 세 사도에게 말씀하러 돌아왔을 때,

by the brook down to Jerusalem. And John would have remained at this post but for his great desire to be near Jesus and to know what was going on. Shortly after David left him, and when John Mark observed Jesus withdraw, with Peter, James, and John, into a near-by ravine, he was so overcome with combined devotion and curiosity that he forsook his sentinel post and followed after them, hiding himself in the bushes, from which place he saw and overheard all that transpired during those last moments in the garden and just before Judas and the armed guards appeared to arrest Jesus.

182:2.13 (1968.1) While all this was in progress at the Master's camp, Judas Iscariot was in conference with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who had assembled his men preparatory to setting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betrayer, to arrest Jesus.

3. ALONE IN GETHSEMANE

182:3.1 (1968.2) After all was still and quiet about the camp, Jesus, taking Peter, James, and John, went a short way up a near-by ravine where he had often before gone to pray and commune. The three apostles could not help recognizing that he was grievously oppressed; never before had they observed their Master to be so heavy-laden and sorrowful. When they arrived at the place of his devotions, he bade the three sit down and watch with him while he went off about a stone's throw to pray. And when he had fallen down on his face, he prayed: “My Father, I came into this world to do your will, and so have I. I know that the hour has come to lay down this life in the flesh, and I do not shrink therefrom, but I would know that it is your will that I drink this cup. Send me the assurance that I will please you in my death even as I have in my life.”

182:3.2 (1968.3) The Master remained in a prayerful attitude for a few moments, and then, going over to the three apostles, he found them sound asleep, for their eyes were heavy and they could not remain awake. As Jesus awoke them, he said: “What! can you not watch with me even for one hour? Cannot you see that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even to death, and that I crave your companionship?” After the three had aroused from their slumber, the Master again went apart by himself and, falling down on the ground, again prayed: “Father, I know it is possible to avoid this cup —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you — but I have come to do your will, and while this is a bitter cup, I would drink it if it is your will.” And when he had thus prayed, a mighty angel came down by his side and, speaking to him, touched him and strengthened him.

182:3.3 (1968.4) When Jesus returned to speak with

다시 속히 잠에 빠진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했다.“이런 때에는 너희가 깨어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없는 동안 잠들어 버렸느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님**은 따로 가서 기도했다.“**아버지**여, 잠들어 있는 사도들을 보셨으니;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영은 정말로 기꺼이 하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뤄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 잠시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봤다. 측은한 태도로 그들을 살펴보면서 부드럽게 말씀했다.“이제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라;결정의 순간이 지나갔다. **사람의 아들**이 적에게 팔리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말씀했다.“일어나라, 야영지로 돌아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며, 내 양떼가 흩어질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예수께서 추종자들과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그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많은 확증을 가졌지만, 이 순간에 그의 인성{人性}에 대한 새로운 흔적을 보게 됐다. 그의 신성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 부활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의 필사자 본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인 굴욕과 십자가형이 일어나야 했다.

그 동안에서 기도하던 때 순간마다,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을 더 단단하게 신앙으로 붙잡았으며;그의 인간 의지는 더 완전하게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하나가 됐다. 강력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여러 말씀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신 것은, 시간세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진보하는 과정 속으로 지나가면서 모든 필사 피조물이 반드시 체험하는, 물질적 사멸{死滅}과 똑같은 죽음에 대한 피조물 체험을 가짐으로써, 이 땅의 증여 과정을 끝내라는 것이었다.

이런 저녁까지만 해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쉬도록 보냈을 때, 고뇌가 점점 깊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 체험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자연스런 오르내림을 체험했으며, 이때 그는 일에 지친 상태였는데, 오랫동안 격렬한 수고와 사도들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염려로 인해 기진맥진했다. 육신화 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필사자가 없겠지만, 그의 얼굴에 쏟아져 내린 땀방울로 인해, 우리는 그가 크게 고뇌했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음을 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께서 자연스런 사건들이 그 행로대로 가도록 허락하려 하심을 확신했으며;자신

the three apostles, he again found them fast asleep. He awakened them, saying: “In such an hour I need that you should watch and pray with me — all the more do you need to pray that you enter not into temptation — wherefore do you fall asleep when I leave you?”

182:3.4 (1968.5) And then, for a third time, the Master withdrew and prayed: “Father, you see my sleeping apostles; have mercy upon them. The spirit is indeed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And now, O Father, if this cup may not pass, then would I drink i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And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he lay for a moment prostrate on the ground. When he arose and went back to his apostles, once more he found them asleep. He surveyed them and, with a pitying gesture, tenderly said: “Sleep on now and take your rest; the time of decision is past. The hour is now upon us wherein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As he reached down to shake them that he might awaken them, he said: “Arise, let us be going back to the camp, for, behold, he who betrays me is at hand, and the hour has come when my flock shall be scattered. But I have already told you about these things.”

182:3.5 (1968.6) During the years that Jesus lived among his followers, they did, indeed, have much proof of his divine nature, but just now are they about to witness new evidences of his humanity. Just before the greatest of all the revelations of his divinity, his resurrection, must now come the greatest proofs of his mortal nature, his humiliation and crucifixion.

182:3.6 (1969.1) Each time he prayed in the garden, his humanity laid a firmer faith-hold upon his divinity; his human will more completely became one with the divine will of his Father. Among other words spoken to him by the mighty angel was the message that the Father desired his Son to finish his earth bestowal by passing through the creature experience of death just as all mortal creatures must experience material dissolution in passing from the existence of time into the progression of eternity.

182:3.7 (1969.2) Earlier in the evening it had not seemed so difficult to drink the cup, but as the human Jesus bade farewell to his apostles and sent them to their rest, the trial grew more appalling. Jesus experienced that natural ebb and flow of feeling which is common to all human experience, and just now he was weary from work, exhausted from the long hours of strenuous labor and painful anxiety concerning the safety of his apostles. While no mortal can presume to underst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carnate Son of God at such a time as this, we know that he endured great anguish and suffered untold sorrow, for the perspiration rolled off his

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우주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의 주권적 능력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온
전히 결심했다.

방대한 창조계에서 소집된 무리가, **예수의 인격화된 조물사와 가브리엘**의 임시 합동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무대에 등장했다. 이 하늘 군대의 부서별 지휘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개입할 것을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땅에서 이 집행에 간섭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 받았다.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적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됐으며; 이런 사랑으로 인한 슬픔이 그를 압박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아는 그런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했다. 사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알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됐음을 잘 알았지만, 그의 인간적 마음은, 이런 수난과 슬픔의 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발견하고 싶었다. 그렇게 피하는 것이 시도되고 실패하자, 기꺼이 잔을 마셨다. **미가엘**의 신성한 정신은, 열두 사도를 위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의 인간적 마음은, 그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더 하고 싶었다. **예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며; 진실로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는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으며; 그가 택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는 그를 배반했다.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부했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했다. 그의 혼은 좌절된 사랑과 거부된 자비로 인해 고뇌했다. 모든 것이 짓누르는 학대와 극심한 고통으로 압도하는 듯한, 몹시 인간적인 순간들이었다.

예수의 인성{人性}이, 사적{私的}인 고독, 공개적인 치욕, 그리고 자신의 대의{大義}가 외적으로 실패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모든 감정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큰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나사렛**에서 지낸 어린 시절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한 초기 사역으로 돌아갔다. 이런 큰 시험이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이 세상 사역에 속하는 그런 많은 즐거운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곧 그를 배반할 배신자와 마주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 산**, 그리고 빛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었다.

유다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님**은 평상시 안정을 온전히 되찾았으며; 영이 육신을 이겼고;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즐기는 모든 인간적 경향에 대해 신앙이 승리했다. 인간 본성을 완전히 깨닫는 최고의 시험을 치렀고, 만족스럽게 통과했

face in great drops. He was at last convinced that the Father intended to allow natural events to take their course; he was fully determined to employ none of his sovereign power as the supreme head of a universe to save himself.

182:3.8 (1969.3) The assembled hosts of a vast creation are now hovered over this scene under the transient joint command of Gabriel and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The division commanders of these armies of heaven have repeatedly been warned not to interfere with these transactions on earth unless Jesus himself should order them to intervene.

182:3.9 (1969.4) The experience of parting with the apostles was a great strain on the human heart of Jesus; this sorrow of love bore down on him and made it more difficult to face such a death as he well knew awaited him. He realized how weak and how ignorant his apostles were, and he dreaded to leave them. He well knew that the time of his departure had come, but his human heart longed to find out whether there might not possibly be some legitimate avenue of escape from this terrible plight of suffering and sorrow. And when it had thus sought escape, and failed, it was willing to drink the cup. The divine mind of Michael knew he had done his best for the twelve apostles; but the human heart of Jesus wished that more might have been done for them before they should be left alone in the world. Jesus' heart was being crushed; he truly loved his brethren. He was isolated from his family in the flesh; one of his chosen associates was betraying him. His father Joseph's people had rejected him and thereby sealed their doom as a people with a special mission on earth. His soul was tortured by baffled love and rejected mercy. It was just one of those awful human moments when everything seems to bear down with crushing cruelty and terrible agony.

182:3.10 (1969.5) Jesus' humanity was not insensible to this situation of private loneliness, public shame, and the appearance of the failure of his cause. All these sentiments bore down on him with indescribable heaviness. In this great sorrow his mind went back to the days of his childhood in Nazareth and to his early work in Galilee. At the time of this great trial there came up in his mind many of those pleasant scenes of his earthly ministry. And it was from these old memories of Nazareth, Capernaum, Mount Hermon, and of the sunrise and sunset on the shimmering Sea of Galilee, that he soothed himself as he made his human heart strong and ready to encounter the traitor who should so soon betray him.

182:3.11 (1969.6) Before Judas and the soldiers arrived, the Master had fully regained his customary poise; the spirit had triumphed over the flesh; faith had asserted itself over all human tendencies to fear or entertain doubt. The

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완전히 헌신된 필사적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한
번 더 적들과 마주칠 준비를 했다.

supreme test of the full realization of the human
nature had been met and acceptably passed.
Once more the Son of Man was prepared to face
his enemies with equanimity and in the full
assurance of his invincibility as a mortal man
unreservedly dedicated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제183편. 배반당하고 체포된 예수

⇨ 182

유랜시아 책

18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3편

배반당하고 체포된 예수

섹션

소개

1. 아버지의 뜻
2. 성 안에서 유다
3. 주님이 체포됨
4.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서 의논함
5.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PAPER 183

THE BETRAYAL AND ARREST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ather's Will
2. Judas in the City
3. The Master's Arrest
4. Discussion at the Olive Press
5.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Palace

소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마지막으로 깨운 후에, 내일의 임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천막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라고, **예수**께서 제안했다. 그러나 세 사도는, 이때 완전히 잠이 깼으며; 잠깐 졸았던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고, 게다가, 흥분된 두 심부름꾼이 도착하자 자극을 받고 잠이 깼는데, 이 심부름꾼들은, **다윗 세베대**에 관하여 질문했고, 감시하고 있는 그의 위치를 **베드로**가 알려주자, 그를 찾아서 재빨리 달려갔다.

비록 여덟 사도가 깊이 잠들었더라도, 그들과 함께 야영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재난을 더 심히 두려워했으므로, 위험이 닥칠 경우에 깨울 수 있도록 보초를 세워 뒀다. 두 심부름꾼이 급히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인** 보초가 동포들을 모두 깨웠으며, 그들은 완전무장을 하고 각자 천막에서 몰려 나왔다. 여덟 사도를 제외하고, 이때 야영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동역자들을 부르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렸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도록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그들은 그의 제안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은 추종자들을 해산시키지 못하고, 그들

INTRODUCTION

183:0.1 (1971.1) AFTER Jesus had finally awakened Peter, James, and John, he suggested that they go to their tents and seek sleep in preparation for the duties of the morrow. But by this time the three apostles were wide awake; they had been refreshed by their short naps, and besides, they were stimulated and aroused by the arrival on the scene of two excited messengers who inquired for David Zebedee and quickly went in quest of him when Peter informed them where he kept watch.

183:0.2 (1971.2) Although eight of the apostles were sound asleep, the Greeks who were encamped alongside them were more fearful of trouble, so much so that they had posted a sentinel to give the alarm in case danger should arise. When these two messengers hurried into camp, the Greek sentinel proceeded to arouse all of his fellow countrymen, who streamed forth from their tents, fully dressed and fully armed. All the camp was now aroused except the eight apostles. Peter desired to call his associates, but Jesus definitely forbade him. The Master mildly admonished them all to return to their tents, but they were reluctant to comply with his suggestion.

183:0.3 (1971.3) Failing to disperse his followers, the

을 떠나서 **겔세마네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감람유 압축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세 사도, **그리 스인**, 그리고 야영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즉시 그를 따르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요한 마가**는 급히 일어나서 감람나무 숲으로 돌아서 내려갔고, 감람유 압축기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이 도착했을 때, 사도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자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야영지와 친구들로부터 떠났던 것이다. **주님**은, 사도들이 깨어 있다가, 자신이 잡힐 때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에서 심한 증오심이 발동되어 병사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체포되거나 앓을까하여 심히 염려했다. 그들이 함께 붙잡히면 자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유대인** 관리들 협의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악한 책략이, **루시퍼**, **사탄**, 및 **캘리개스차**의 승인을 온전히 받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영역에 속한 이 반역자들 역시, 그와 함께 사도들도 모두 파멸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감람유 압축기 위에 홀로 앉아서 배반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이때 오직 **요한 마가**와 수많은 천상의 참관인 무리만이 그를 지켜봤다.

1. 아버지의 뜻

주님이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의 의미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 무지한 종들과 냉담한 병사들이 **예수**를 잔인하게 다룬 것, 그를 심리(審理)할 때의 불공정한 처리,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무감각한 태도를,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이런 모든 수난과 굴욕을 인내심으로 감수하면서 참되게 행했다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들**이 필사 체험의 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었지만, 개화됐을 것으로 추측했으나 **주님**을 그토록 혹독하게 고문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의 인격자를 그토록 계속 경멸한 인간에게 잔인한 습성을 조장시킬만한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예수**께서 필사자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겪어야 했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이 체험은, 어떤 면에서도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상관이 없었으며, 그것은 지친 사도들이 육체적 피로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동산에서 드렸던 삼중적(三重的) 기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순간에, 그의 인간 본성이 그렇게 하기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맹세한 것이었다.

Master left them and walked down toward the olive press near the entrance to Gethsemane Park. Although the three apostles, the Greek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camp hesitated immediately to follow him, John Mark hastened around through the olive trees and secreted himself in a small shed near the olive press. Jesus withdrew from the camp and from his friends in order that his apprehenders, when they arrived, might arrest him without disturbing his apostles. The Master feared to have his apostles awake and present at the time of his arrest lest the spectacle of Judas's betraying him should so arouse their animosity that they would offer resistance to the soldiers and would be taken into custody with him. He feared that, if they should be arrested with him, they might also perish with him.

183:0.4 (1971.4) Though Jesus knew that the plan for his death had its origin in the councils of the rulers of the Jews, he was also aware that all such nefarious schemes had the full approval of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And he well knew that these rebels of the realms would also be pleased to see all of the apostles destroyed with him.

183:0.5 (1971.5) Jesus sat down, alone, on the olive press, where he awaited the coming of the betrayer, and he was seen at this time only by John Mark and an innumerable host of celestial observers.

1. THE FATHER'S WILL

183:1.1 (1971.6) There is great danger of misunderstanding the meaning of numerous sayings and many events associat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Master's career in the flesh. The cruel treatment of Jesus by the ignorant servants and the calloused soldiers, the unfair conduct of his trials, and the unfeeling attitude of the professed religious leaders,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fact that Jesus, in patiently submitting to all this suffering and humiliation, was truly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Paradise. It was, indeed and in truth, the will of the Father that his Son should drink to the full the cup of mortal experience, from birth to death, but the Father in heaven had nothing whatever to do with instigating the barbarous behavior of those supposedly civilized human beings who so brutally tortured the Master and so horribly heaped successive indignities upon his nonresisting person. These inhuman and shocking experiences which Jesus was called upon to endure in the final hours of his mortal life were not in any sense a part of the divine will of the Father, which his human nature had so triumphantly pledged to carry out at the time of the final surrender of man to God as signified in the threefold prayer which he indited in the garden while his weary apostles slept the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필사자가 육신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과 똑같이, 중여된 **아들**도 세상에서 일생을 **자연스럽게** 마칠 것을 바라셨다. 평범한 남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예상할 수 없고, 특별한 섭리에 따라 편하게 죽은 후에 맞이하는 부수적 사건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의 결실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육신의 삶을 마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굴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끔찍할 만큼 확실하게 엄습하고 있는 비인간적 사건을 꾸미는 사악한 음모의 잔인한 마수{魔手}로부터 자신을 구해내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중오심을 표현하고, 전례 없이 잔인성을 과시하는 모든 과정은, 악한 사람과 사악한 필사자들이 꾸민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예수**의 대적들이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경솔하고 악한 필사자들이 중여 **아들**을 이렇게 거부하게 될 것을 보장하려고, 그들은 많은 일을 했다. 죄의 아비조차, 십자가 형이라는 끔찍하고 혐오스런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sleep of physical exhaustion.

183:1.2 (1972.1) The Father in heaven desired the bestowal Son to finish his earth career *naturally*, just as all mortals must finish up their lives on earth and in the flesh. Ordinary men and women cannot expect to have their last hours on earth and the supervening episode of death made easy by a special dispensation. Accordingly, Jesus elected to lay down his life in the flesh in the manner which was in keeping with the outworking of natural events, and he steadfastly refused to extricate himself from the cruel clutches of a wicked conspiracy of inhuman events which swept on with horrible certainty toward his unbelievable humiliation and ignominious death. And every bit of all this astounding manifestation of hatred and this unprecedented demonstration of cruelty was the work of evil men and wicked mortals. God in heaven did not will it, neither did the archenemies of Jesus dictate it, though they did much to insure that unthinking and evil mortals would thus reject the bestowal Son. Even the father of sin turned his face away from the excruciating horror of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2. 성 안에서 유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다가 갑자기 식탁을 떠난 **유다**는, 곧바로 사촌 집으로 갔고, 그다음에 두 사람은 곧장 성전 경비대 대장에게 갔다. **유다**는 그 대장에게 경비병을 모으도록 요청했고, 그들을 **예수**께 안내할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유다**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거기에 나타났었고, **마가**의 집을 향해 출발하는 일이 조금 지체됐는데, **유다**는 아직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님**과 열한 사도는, 그 배반자와 경비병들이 도착하기 15분 전에 **엘리아 마가**의 집을 떠났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할 무렵, **예수**와 열한 사도는 성벽 밖에 있었고, **감람원** 야영지로 가고 있었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 열한 사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크게 당황했는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만이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오후에 야영지를 떠났을 때, **유다**는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만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으며; **유다**는 그 성이 조용하고 반항할 기회가 거의 없을 때 **예수**를 잡고 싶어 했다. 배반자는, 그들이 야영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60명 넘는 헌신된 제자가 합세하게 될 것을 염려했으며, **열심당 시몬**이 그의 물건 속에 많은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유다**는, 열한 명의 충성된 사도가 자기를 얼마나 증오하게 될지 생각하면서 점차 조바심이 났고, 그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그는 불충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겁쟁이었다.

2. JUDAS IN THE CITY

183:2.1 (1972.2) After Judas so abruptly left the table while eating the Last Supper, he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his cousin, and then did the two go straight to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Judas requested the captain to assemble the guards and informed him that he was ready to lead them to Jesus. Judas having appeared on the scene a little before he was expected, there was some delay in getting started for the Mark home, where Judas expected to find Jesus still visiting with the apostles. The Master and the eleven left the home of Elijah Mark fully fifteen minutes before the betrayer and the guards arrived. By the time the apprehenders reached the Mark home, Jesus and the eleven were well outside the walls of the city and on their way to the Olivet camp.

183:2.2 (1972.3) Judas was much perturbed by this failure to find Jesus at the Mark residence and in the company of eleven men, only two of whom were armed for resistance. He happened to know that, in the afternoon when they had left camp, only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were girded with swords; Judas had hoped to take Jesus when the city was quiet, and when there was little chance of resistance. The betrayer feared that, if he waited for them to return to their camp, more than threescore of devoted disciples would be encountered, and he also knew that Simon Zelotes had an ample store of arms in his possession. Judas was becoming increasingly nervous as he meditated how the eleven loyal apostles would detest him, and he feared they

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다**는 경비 대장에게 성전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 이때 관리들은, 배신자와 맺은 협정에 따라서 그날 밤중까지는 **예수**를 체포하리라고 예상하면서, **예수**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 이미 **예수**를 놓쳤고, **겔세마네**로 가서 그를 체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배반자는 그때, 60명 넘는 헌신된 추종자가 그와 함께 야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께서 항상 무저항주의를 전파하지 않았느냐고 **유다**에게 말했지만, **유다**는 **예수**의 추종자 전부가 그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몸을 염려했으므로, 40명의 무장된 병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대인** 권세자들은, 자기네 수하에 그만큼의 무장된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안토니아**의 요새로 가서, 이 경비병들을 내달라고 **로마** 지휘관에게 요청했지만; 그는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요청을 명백히 거절했으며, 상관에게 물어보라고 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된 **로마** 병사들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 받기 위해, 결국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가면서 한 시간 이상 소모했다. 그들이 **빌라도**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늦은 시간이었으며, 그는 아내와 함께 사택으로 퇴근한 후였다. 그는 그 계획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무엇보다도 아내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산헤드린**을 관장하는 관원이 와서 협조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므로, 총독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롯 유다**가 성전을 출발한 것은 열한 시 반쯤이었으며, 60명 이상의 사람들이--곧 성전 경비병, **로마** 군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호기심 많은 종들이-- 그를 따라갔다.

3. 주님이 체포됨

무장한 군인과 경비병들로 구성된 이 부대가 등과 횃불을 들고 공원으로 갈 때, **유다**는 **예수**를 재빨리 식별해서, 동역자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모이기 전에, 체포하러 온 자들이 먼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리보다 조금 앞에서 걸어갔다. 그리고 **유다**가 **주님**을 대적하는자들 앞에서 가기로 결정한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사도들이, 바로 뒤에 따라온 무장한 경비병들과 자기를 직접

would all seek to destroy him. He was not only disloyal, but he was a real coward at heart.

183:2.3 (1973.1) When they failed to find Jesus in the upper chamber, Judas asked the captain of the guard to return to the temple. By this time the rulers had begun to assemble at the high priest's home preparatory to receiving Jesus, seeing that their bargain with the traitor called for Jesus' arrest by midnight of that day. Judas explained to his associates that they had missed Jesus at the Mark home,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go to Gethsemane to arrest him. The betrayer then went on to state that more than threescore devoted followers were encamped with him, and that they were all well armed. The rulers of the Jews reminded Judas that Jesus had always preached nonresistance, but Judas replied that they could not depend upon all Jesus' followers obeying such teaching. He really feared for himself and therefore made bold to ask for a company of forty armed soldiers. Since the Jewish authorities had no such force of armed men under their jurisdiction, they went at once to the fortress of Antonia and requested the Roman commander to give them this guard; but when he learned that they intended to arrest Jesus, he promptly refused to accede to their request and referred them to his superior officer. In this way more than an hour was consumed in going from one authority to another until they finally were compelled to go to Pilate himself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to employ the armed Roman guards. It was late when they arrived at Pilate's house, and he had retired to his private chambers with his wife. He hesitat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enterprise, all the more so since his wife had asked him not to grant the request. But inasmuch as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Jewish Sanhedrin was present and making personal request for this assistance, the governor thought it wise to grant the petition, thinking he could later on right any wrong they might be disposed to commit.

183:2.4 (1973.2) Accordingly, when Judas Iscariot started out from the temple, about half after eleven o'clock, he was accompanied by more than sixty persons — temple guards, Roman soldiers, and curious servants of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3. THE MASTER'S ARREST

183:3.1 (1973.3) As this company of armed soldiers and guards, carrying torches and lanterns, approached the garden, Judas stepped well out in front of the band that he might be ready quickly to identify Jesus so that the apprehenders could easily lay hands on him before his associates could rally to his defense. And there was yet another reason why Judas chose to be ahead of the Master's enemies: He thought it would appear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군인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생각이었다. **유다**는 마치 체포하려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급히 오는 것처럼 보일 생각조차 했지만, 배반자를 당황하게 하는 **예수**의 인사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주님**은 **유다**에게 다정히 말씀했지만, 그는 그에게 배신자로서 인사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같이 야영하던 30명 가량의 사람은, 횃불을 든 무장한 무리가 언덕 꼭대기를 돌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는 군인임을 직감하고, **주님**이 달빛 속에 쓸쓸히 앉아 있는 감람유 압축기 근처로 달려 내려갔다. 군인 일행이 한 쪽 비탈에 도착했을 때, 세 사도와 그 동역자들도 반대편 비탈에 당도했다. **유다**가 **주님**께 말을 걸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무리는 꼼짝 않고 서 있었으며, **유다**는 그의 이마에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준비했다.

경비병들을 **겻세마네**로 안내한 후에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예수**를 지목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실행하고 나서 그곳을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배반자의 바램이었다. **유다**는 사도들이 모두 나타나, 사랑하는 선생님을 감히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을 무척 염려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가 배반자임을 알면서 인사하자, 그는 너무 혼돈되어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배신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으며, 한쪽 편 비탈로 걸어가서,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왼쪽 맨 앞에 있는 군인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대장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그 장교 앞으로 가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 지닌 평온한 위엄으로 거기에 선 채, “내가 그라”고 말했다. 무장한 이 무리 가운데 다수는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고, 더러는 그의 대단한 행적에 대해 알았으며, 그가 자기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듣자, 앞줄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가 평온하고 위엄 있게 신분을 밝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따라서, **유다**는 배반하려던 자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냈고, 그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신자는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난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 했으며, 게다가 그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푸짐하게 수여될 큰 상과 명예에 걸맞게 하기 위해, **유대인** 관리들과 맺은 배반 협정에서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that he had arrived on the scene ahead of the soldiers so that the apostles and others gathered about Jesus might not directly connect him with the armed guards following so closely upon his heels. Judas had even thought to pose as having hastened out to warn them of the coming of the apprehenders, but this plan was thwarted by Jesus' blighting greeting of the betrayer. Though the Master spoke to Judas kindly, he greeted him as a traitor.

183:3.2 (1973.4) As soon as Peter, James, and John, with some thirty of their fellow campers, saw the armed band with torches swing around the brow of the hill, they knew that these soldiers were coming to arrest Jesus, and they all rushed down to near the olive press where the Master was sitting in moonlit solitude. As the company of soldiers approached on one side, the thre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approached on the other. As Judas strode forward to accost the Master, there the two groups stood, motionless, with the Master between them and Judas making ready to impress the traitorous kiss upon his brow.

183:3.3 (1974.1) It had been the hope of the betrayer that he could, after leading the guards to Gethsemane, simply point Jesus out to the soldiers, or at most carry out the promise to greet him with a kiss, and then quickly retire from the scene. Judas greatly feared that the apostles would all be present, and that they would concentrate their attack upon him in retribution for his daring to betray their beloved teacher. But when the Master greeted him as a betrayer, he was so confused that he made no attempt to flee.

183:3.4 (1974.2) Jesus made one last effort to save Judas from actually betraying him in that, before the traitor could reach him, he stepped to one side and, addressing the foremost soldier on the left, the captain of the Romans, said, “Whom do you seek?” The captain answered, “Jesus of Nazareth.” Then Jesus stepped up immediately in front of the officer and, standing there in the calm majesty of the God of all this creation, said, “I am he.” Many of this armed band had heard Jesus teach in the temple, others had learned about his mighty works, and when they heard him thus boldly announce his identity, those in the front ranks fell suddenly backward. They were overcome with surprise at his calm and majestic announcement of identity. There was, therefore, no need for Judas to go on with his plan of betrayal. The Master had boldly revealed himself to his enemies, and they could have taken him without Judas's assistance. But the traitor had to do something to account for his presence with this armed band, and besides, he wanted to make a show of carrying out his part of the betrayal bargain with the rulers of the Jew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great reward and honors which he believed would be heaped upon him in

예수의 모습과 특별한 그의 목소리 때문에 처음에 뒤로 물러났던 경비병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선생님**.”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하며 **주님**을 포옹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친구여, 이렇게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냐!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려고까지 하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경실색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의 포옹에서 벗어나, 경비병과 군인들 쪽으로 걸어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물었다. 대장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준비가 돼있다.”

예수께서는 경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고, 군인들의 지휘관은 세 사도와 그들의 동역자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예수**께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있을 때, 대제사장 호위병인 **말고**라 하는 **시리아인**이 **예수** 앞으로 나왔고, **로마인** 지휘관이 **예수**를 그렇게 묶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했다. **주님**이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려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동역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를 죽이려고 달려 나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나서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들어 **베드로**를 말리고, 엄하게 꾸짖으며 말씀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열두 군단(軍團) 이상의 천사와 그 동역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의 물리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정지시켰지만, 경비병 대장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는 곧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신속하게 그를 묶었다. 두꺼운 줄로 그의 손을 묶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려 나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묶이고 나자, **주님**의 추종자들이 그

compensation for his promise to deliver Jesus into their hands.

183:3.5 (1974.3) As the guards rallied from their first faltering at the sight of Jesus and at the sound of his unusual voice, and as the apostles and disciples drew nearer, Judas stepped up to Jesus and, placing a kiss upon his brow, said, “Hail, Master and Teacher.” And as Judas thus embraced his Master, Jesus said, “Friend, is it not enough to do this! Would you even betray the Son of Man with a kiss?”

183:3.6 (1974.4) The apostles and disciples were literally stunned by what they saw. For a moment no one moved. Then Jesus, disengaging himself from the traitorous embrace of Judas, stepped up to the guards and soldiers and again asked, “Whom do you seek?” And again the captain said, “Jesus of Nazareth.” And again answered Jesus: “I have told you that I am he. If, therefore, you seek me, let these others go their way. I am ready to go with you.”

183:3.7 (1974.5) Jesus was ready to go back to Jerusalem with the guards, and the captain of the soldiers was altogether willing to allow the thre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to go their way in peace. But before they were able to get started, as Jesus stood there awaiting the captain's orders, one Malchus, the Syrian bodyguard of the high priest, stepped up to Jesus and made ready to bind his hands behind his back, although the Roman captain had not directed that Jesus should be thus bound. When Peter and his associates saw their Master being subjected to this indignity,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train themselves. Peter drew his sword and with the others rushed forward to smite Malchus. But before the soldiers could come to the defense of the high priest's servant, Jesus raised a forbidding hand to Peter and, speaking sternly, said: “Peter, put up your sword. They who take the sword shall perish by the sword. Do you not understand that it is the Father's will that I drink this cup? And do you not further know that I could even now command more than twelve legions of angels and their associates, who would deliver me from the hands of these few men?”

183:3.8 (1975.1) While Jesus thus effectively put a stop to this show of physical resistance by his followers, it was enough to arouse the fear of the captain of the guards, who now, with the help of his soldiers, laid heavy hands on Jesus and quickly bound him. And as they tied his hands with heavy cords, Jesus said to them: “Why do you come out against me with swords and with staves as if to seize a robber?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publicly teaching the people, and you made no effort to take me.”

183:3.9 (1975.2) When Jesus had been bound, the

를 구하려고 대들 것을 염려하여, 지휘관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급히 골짜기로 달아났으므로, 군인들은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요한 마가**는 근처의 외딴 창고에서 그동안 내내 남아 있었다. 경비병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요한 마가**는 도망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창고에서 몰래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 그가 일어나는 순간,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돌아오는 군인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외투를 걸친 아이를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거의 잡힐 뻔했다. 사실, 그 군인은 **요한 마가**를 따라와서 그의 외투를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외투를 벗어 던졌고, 그 군인이 빈 외투를 들고 있는 동안, 벗은 채로 도망쳤다. **요한 마가**는, 위쪽 오솔길에 있는 **다윗 세베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사도들이 잠들어 있는 천막으로 서둘러 함께 돌아갔고, 여덟 사도 모두에게 **예수**께서 배반당하고 체포됐음을 알렸다.

여덟 사도가 잠에서 깬 때쯤,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했다. 한편, 감람나무 숲 속에 숨어있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군인, 경비병, 및 하인들 무리를 이미 뒤따라갔으며, 그들은 마치 지독한 죄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돌아갔다. **요한**은 무리 뒤에서 가까이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군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후에, **요한 마가**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천막에서 발견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리하여 감람나무 과수원 담을 따라 돌아가서 그 무리 앞으로 갔고, 대제사장의 저택 때문 입구 근처에 숨었다.

4.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서 의논함

야고보 세베대는, **시몬 베드로**와 동생 **요한**을 따라갈 수 없게 됐음을 알고, **주님**이 체포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 감람유 압축기에 모인, 같이 야영하던 사람들 및 다른 사도들과 합류했다.

안드레는 동료 사도 전체의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잠깐 동안 비공식 토의가 있는 후에, **열심당 시몬**이 감람유 압축기의 돌담 앞에 일어서서, **주님**과 천국의 대의를 위해 충성하자고 감동적으로 열변을 토했으며, 속히 무리를 따라가서 **예수**를 구출하자고, 동료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간곡히 요청했

captain, fearing that the followers of the Master might attempt to rescue him, gave orders that they be seized; but the soldiers were not quick enough since, having overheard the captain's orders to arrest them, Jesus' followers fled in haste back into the ravine. All this time John Mark had remained secluded in the near-by shed. When the guards started back to Jerusalem with Jesus, John Mark attempted to steal out of the shed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fleeing apostles and disciples; but just as he emerged, one of the last of the returning soldiers who had pursued the fleeing disciples was passing near and, seeing this young man in his linen coat, gave chase, almost overtaking him. In fact, the soldier got near enough to John to lay hold upon his coat, but the young man freed himself from the garment, escaping naked while the soldier held the empty coat. John Mark made his way in all haste to David Zebedee on the upper trail. When he had told David what had happened, they both hastened back to the tents of the sleeping apostles and informed all eight of the Master's betrayal and arrest.

183:3.10 (1975.3) At about the time the eight apostles were being awakened, those who had fled up the ravine were returning, and they all gathered together near the olive press to debate what should be done. In the meantime,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who had hidden among the olive trees, had already gone on after the mob of soldiers, guards, and servants, who were now leading Jesus back to Jerusalem as they would have led a desperate criminal. John followed close behind the mob, but Peter followed afar off. After John Mark's escape from the clutch of the soldier, he provided himself with a cloak which he found in the tent of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He suspected the guards were going to take Jesus to the home of Annas, the high priest emeritus; so he skirted around through the olive orchards and was there ahead of the mob, hiding near the entrance to the gate of the high priest's palace.

4. DISCUSSION AT THE OLIVE PRESS

183:4.1 (1975.4) James Zebedee found himself separated from Simon Peter and his brother John, and so he now joined the other apostles and their fellow campers at the olive press to deliberate on what should be done in view of the Master's arrest.

183:4.2 (1975.5) Andrew had been released from all responsibility in the group management of his fellow apostles; accordingly, in this greatest of all crises in their lives, he was silent. After a short informal discussion, Simon Zelotes stood up on the stone wall of the olive press and, making an impassioned plea for loyalty to the Master and the cause of the kingdom, exhorted his fellow apostles

다. **시몬**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다니엘**이 일어서서, 무저항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한 **예수**의 교훈에 주의할 기율이도록 충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공격적 주동에 가담하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날 밤에 했던,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를 위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이런 입장에 대한 **아고보 세베대**의 지지로 용기를 얻었는데, **아고보**는 이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동료 검객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마태**와 **빌립**도 한 마디 했지만,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던 사실을 **도마**가 상기시킬 때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 **도마**는, **주님**이 친구들에게 **주님** 자신을 방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쳐부수기 위해 그의 신성한 능력을 여전히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도마**는, 그 모임을 위해 소식을 전달하고 심부름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윗 세베대**가 야영지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각자 자신을 위해 흠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 같은 날 새벽 두 시 반쯤에 야영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으며, **다윗**만이 서너 명의 심부름꾼과 함께 남았고, **예수**께서 어디로 끌려갔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아오도록, 다른 심부름꾼들이 파견됐다.

다섯 명의 사도, 즉 **나다니엘**, **마태**, **빌립**, 및 쌍둥이 형제는 **베스페이지**와 **베다니**로 가서 숨었다. **도마**, **안드레**, **아고보**, 및 **열심당 시몬**은 성(城)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안나**의 집으로 따라갔다.

날이 새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갯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갔는데, 낙심하여 깊은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니고데모**의 집에 있는 형 **안드레**를 만나도록, **다윗**이 심부름꾼 한 명을 동행시켰다.

십자가형이 끝난 바로 그 순간까지,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지시대로 항상 그의 곁에 남았으며, **다윗**의 심부름꾼들에게 매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동산 야영지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숨어있는 사도들과 **예수**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도 바로 **요한**이었다.

분명히, 목자가 타격을 입었고 양들은 흩어졌다! 바로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미리 경고했다는 것을 그들 모두 어렴풋이 깨닫기는 했지만, **주님**이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

and the other disciples to hasten on after the mob and effect the rescue of Jesus. The majority of the company would have been disposed to follow his aggressive leadership had it not been for the advice of Nathaniel, who stood up the moment Simon had finished speaking and called their attention to Jesus' oft-repeated teachings regarding nonresistance. He further reminded them that Jesus had that very night instructed them that they should preserve their lives for the time when they should go forth into the world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And Nathaniel was encouraged in this stand by James Zebedee, who now told how Peter and others drew their swords to defend the Master against arrest, and that Jesus bade Simon Peter and his fellow swordsmen sheathe their blades. Matthew and Philip also made speeches, but nothing definite came of this discussion until Thomas, calling their attention to the fact that Jesus had counseled Lazarus against exposing himself to death, pointed out that they could do nothing to save their Master inasmuch as he refused to allow his friends to defend him, and since he persisted in refraining from the use of his divine powers to frustrate his human enemies. Thomas persuaded them to scatter, every man for himself, with the understanding that David Zebedee would remain at the camp to maintain a clearinghouse and messenger headquarters for the group. By half past two o'clock that morning the camp was deserted; only David remained on hand with three or four messengers, the others having been dispatched to secure information as to where Jesus had been taken, and what was going to be done with him.

183:4.3 (1976.1) Five of the apostles, Nathaniel, Matthew, Philip, and the twins, went into hiding at Bethpage and Bethany. Thomas, Andrew, James, and Simon Zelotes were hiding in the city.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followed along to the home of Annas.

183:4.4 (1976.2) Shortly after daybreak, Simon Peter wandered back to the Gethsemane camp, a dejected picture of deep despair. David sent him in charge of a messenger to join his brother, Andrew, who was at the home of Nicodemus in Jerusalem.

183:4.5 (1976.3) Until the very end of the crucifixion, John Zebedee remained, as Jesus had directed him, always near at hand, and it was he who supplied David's messengers with information from hour to hour which they carried to David at the garden camp, and which was then relayed to the hiding apostles and to Jesus' family.

183:4.6 (1976.4) Surely, the shepherd is smitten and the sheep are scattered! While they all vaguely realize that Jesus has forewarned them of this very situation, they are too severely shocked by the Master's sudden disappearance to be able to

다.

날이 밝은 직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형과 함께 있으려고 떠난 직후에, **예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오직 **주님**이 이미 체포됐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의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숨을 헐떡이면서 야영지에 도착했으며; **여리고**로 통하는 길로 급히 내려가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를 보내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 심부름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하게 될 소식을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목요일 밤 후반부와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사도들, 핵심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 세상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과 각 사람은, **다윗 세베대**가 **갯세마네** 야영지에 있는 그의 본부에서 계속 운영하는 연락 업무를 통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5. 대체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동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전 경비병들의 **유대인** 지휘관과 군인 부대의 **로마인** 지휘관 사이에서,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현직(現職)에 있는 대체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라고 명했다.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은, 전직 대체사장이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저택으로 **예수**를 호송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로마인**이 **유대인** 종교법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직접 **안나스**와 의논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로마**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게 됐으며; 따라서 그들은 예비 심문을 받도록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를 데려갔다.

유다는 그 지휘관들 가까이 따라가면서, 모든 말을 듣고자 했지만; **유대인** 지휘관과 **로마인** 장교들 다 배반자가 듣지 못하도록 말했으므로, 그들의 의논에 끼여들지 못했다--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를 멀리했다.

이 무렵에 **요한 세베대**는, 항상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지시를 기억하면서, **예수** 가까이로 서둘러서 갔고, 두 지휘관 사이에서 걸어들었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부하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체포하여 묶어라. 그는 이 사람의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로마인** 지휘관은, 둘러보다가 **요한**을 발견하자, 그 사도를 자기 옆에서 따라오게 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인** 지휘관이 **유대인** 지휘관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배신자도 아니고 겁쟁

use their minds normally.

183:4.7 (1976.5) It was shortly after daylight and just after Peter had been sent to join his brother, that Jude, Jesus' brother in the flesh, arrived in the camp, almost breathless and in advance of the rest of Jesus' family, only to learn that the Master had already been placed under arrest; and he hastened back down the Jericho road to carry this information to his mother and to his brothers and sisters. David Zebedee sent word to Jesus' family, by Jude, to forgather at the house of Martha and Mary in Bethany and there await news which his messengers would regularly bring them.

183:4.8 (1976.6) This was the situation during the last half of Thursday night and the early morning hours of Friday as regards the apostles, the chief disciples, and the earthly family of Jesus. And all these groups and individuals were kept in touch with each other by the messenger service which David Zebedee continued to operate from his headquarters at the Gethsemane camp.

5.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PALACE

183:5.1 (1977.1) Before they started away from the garden with Jesus, a dispute arose between the Jewish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nd the Roman captain of the company of soldiers as to where they were to take Jesus.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gave orders that he should be taken to Caiaphas, the acting high priest.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directed that Jesus be taken to the palace of Annas, the former high priest and father-in-law of Caiaphas. And this he did because the Romans were in the habit of dealing directly with Annas in all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enforcement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laws. And the orders of the Roman captain were obeyed; they took Jesus to the home of Annas for his preliminary examination.

183:5.2 (1977.2) Judas marched along near the captains, overhearing all that was said, but took no part in the dispute, for neither the Jewish captain nor the Roman officer would so much as speak to the betrayer — they held him in such contempt.

183:5.3 (1977.3) About this time John Zebedee, remembering his Master's instructions to remain always near at hand, hurried up near Jesus as he marched along between the two captains. The commander of the temple guards, seeing John come up alongside, said to his assistant: “Take this man and bind him. He is one of this fellow's followers.” But when the Roman captain heard this and, looking around, saw John, he gave orders that the apostle should come over by him, and that no man should molest him. Then the

이도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 동산에서 봤고, 칼을 꺼내서 우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주님**을 따라올 만큼 용감하니,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죄수든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구가 법정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므로, 죄수{罪囚}인 **주님** 옆에 이 사람이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진하는 자들 맨 뒤로 쳐져서, **안나스**의 저택까지 혼자 걸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이날 밤과 다음 날 **예수**께서 쓰라린 체험을 하는 동안 내내, **요한 세베대**가 어떻게 해서 그의 곁에 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유대인** 종교 법정의 집행에 대해 입회인{立會人}이 되도록, **로마인** 지휘자가 지명한 어떤 신분을 갖게 됐으므로, 그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어떤 말이나 방해도 하지 못했다. 그 **로마인**은, **안나스**의 저택에서 성전 경비병 지휘관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부하에게, “이 죄수를 따라가서,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들이 그를 암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의 친구인 이 **갈릴리인**이 옆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명했을 때, **요한**에게 부여된 특권은 더 확고하게 됐다. 그리하여 다른 열 명의 사도는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요한**은 **로마인**의 보호 속에서 행동했고, **유대인**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안나스**의 저택에 도착하기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안나스** 앞에 나타나기까지 아무 말수도 하지 않았다.

Roman captain said to the Jewish captain: “This man is neither a traitor nor a coward. I saw him in the garden, and he did not draw a sword to resist us. He has the courage to come forward to be with his Master, and no man shall lay hands on him. The Roman law allows that any prisoner may have at least one friend to stand with him before the judgment bar, and this man shall not be prevented from standing by the side of his Master, the prisoner.” And when Judas heard this, he was so ashamed and humiliated that he dropped back behind the marchers, coming up to the palace of Annas alone.

183:5.4 (1977.4) And this explains why John Zebedee was permitted to remain near Jesus all the way through his trying experiences this night and the next day. The Jews feared to say aught to John or to molest him in any way because he had something of the status of a Roman counselor designated to act as observer of the transactions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court. John's position of privilege was made all the more secure when, in turning Jesus over to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t the gate of Annas's palace, the Roman, addressing his assistant, said: “Go along with this prisoner and see that these Jews do not kill him without Pilate's consent. Watch that they do not assassinate him, and see that his friend, the Galilean, is permitted to stand by and observe all that goes on.” And thus was John able to be near Jesus right on up to the time of his death on the cross, though the other ten apostles were compelled to remain in hiding. John was acting under Roman protection, and the Jews dared not molest him until after the Master's death.

183:5.5 (1977.5) And all the way to the palace of Annas, Jesus opened not his mouth. From the time of his arrest to the time of his appearance before Annas, the Son of Man spoke no word.

제184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 183

유랜시아 책

18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4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섹션

소개

1. 안나스의 심문
2.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3.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4. 굴욕적인 시간
5. 법정의 두 번째 회합

PAPER 184

BEFORE THE SANHEDRIN COURT

SECTIONS

Introduction

1. Examination by Annas
2. Peter in the Courtyard
3. Before the Court of Sanhedrists
4. The Hour of Humiliation
5. The Second Meeting of the Court

소개

안나스의 대리인들이 **로마** 군인 지휘관에게, **예수**를 체포하면 **안나스**의 저택으로 즉시 데려오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었다. 전직 대제사장인 그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권세자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또한 **예수**를 자기 집에 여러 시간 억류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법정이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다. 성전에서 아침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 전에 **산헤드린** 법정이 소집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은 아침 세 시쯤이었다.

안나스는, 사위인 **가야바**의 저택에서 **산헤드린** 법정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았다. 약 30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예수**께서 자기들 앞으로 호송될 경우 그에게 판결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자정 무렵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였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소집됐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재판 법정 구성이 오직 23명으로 규정됐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체포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세 시간

INTRODUCTION

184:0.1 (1978.1) REPRESENTATIVES of Annas had secretly instructed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to bring Jesus immediately to the palace of Annas after he had been arrested. The former high priest desired to maintain his prestige as the chief ecclesiastical authority of the Jews. He also had another purpose in detaining Jesus at his house for several hours, and that was to allow time for legally calling together the court of the Sanhedrin. It was not lawful to convene the Sanhedrin court before the time of the offering of the morning sacrifice in the temple, and this sacrifice was offered abou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184:0.2 (1978.2) Annas knew that a court of Sanhedrists was in waiting at the palace of his son-in-law, Caiaphas. Some thirty members of the Sanhedrin had gathered at the home of the high priest by midnight so that they would be ready to sit in judgment on Jesus when he might be brought before them. Only those members were assembled who were strongly and openly opposed to Jesus and his teaching since it required only twenty-three to constitute a trial court.

184:0.3 (1978.3) Jesus spent about three hours at the palace of Annas on Mount Olivet, not far from the garden of Gethsemane, where they arrested him.

가량 보냈다. **요한 세베대**가 **안나스**의 저택 안에서 무사하고 자유로웠던 것은, **로마인** 지휘관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먼 친척이었으므로,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고, 그 집의 나이든 종들이 **요한**과 형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 안나스의 심문

안나스는 성전의 수익으로 부자가 됐고, 사위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자신은 **로마** 권세자들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로 최고 권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드러운면서도 교활한 기획가요 음모자였다. **예수**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지휘하고 싶었으며, 그런 중요한 일을, 무뚝뚝하고 공격적인 사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주저했다. **안나스**는 **주님**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사두개인**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했으며, **산헤드린** 회원 중에서 **예수**의 대의를 지지한 사람들이 실제로 모두 **바리새인**이었으므로, **바리새인** 가운데 일부가 동정심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염려했다.

주님이 이 집에 초대되어 영접 받았을 때 **안나스**의 냉담함과 침묵을 보고 즉시 떠난 후로, **안나스**는 **예수**를 수년간 만나지 못했다. **안나스**는 일찍이 이렇게 교체했던 것을 이용하고, 그리하여 **예수**가 자기주장을 포기하고 **팔레스틴**을 떠나도록 설득해볼 작정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를 꺼렸고, **예수**께서 죽음을 감수하기보다 그 고장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하리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신념에 차고 단호한 모습의 **갈릴리** 사람 앞에 선 **안나스**는, 그런 제안이 아무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예수**께서는 **안나스**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위엄 있고 침착했다.

예수가 어렸을 때에는 **안나스**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아주 최근에 돈바꾸는 자들 및 다른 상업 매매업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냄으로 인해, 그의 수입이 위협을 받았다. 전직 대제사장인 그가 양심을 품게 된 것은, **예수**의 교훈보다 이런 행동 때문이었다.

안나스는 넓은 객실로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은 후에, **예수**를 그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네가 우리 고장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르침에 관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안나스**가 미심쩍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다시 말했다: “선동자인 **열심당 시몬** 외에, 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다시 그를 내려다 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John Zebedee was free and safe in the palace of Annas not only because of the word of the Roman captain, but also because he and his brother James were well known to the older servants, having many times been guests at the palace as the former high priest was a distant relative of their mother, Salome.

1. EXAMINATION BY ANNAS

184:1.1 (1978.4) Annas, enriched by the temple revenues, his son-in-law the acting high priest, and with his relations to the Roman authorities, was indeed the most powerful single individual in all Jewry. He was a suave and politic planner and plotter. He desired to direct the matter of disposing of Jesus; he feared to trust such an important undertaking wholly to his brusque and aggressive son-in-law. Annas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Master's trial was kept in the hands of the Sadducees; he feared the possible sympathy of some of the Pharisees, seeing that practically all of those members of the Sanhedrin who had espoused the cause of Jesus were Pharisees.

184:1.2 (1978.5) Annas had not seen Jesus for several years, not since the time when the Master called at his house and immediately left upon observing his coldness and reserve in receiving him. Annas had thought to presume on this early acquaintance and thereby attempt to persuade Jesus to abandon his claims and leave Palestine. He was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murder of a good man and had reasoned that Jesus might choose to leave the country rather than to suffer death. But when Annas stood before the stalwart and determined Galilean, he knew at once that it would be useless to make such proposals. Jesus was even more majestic and well poised than Annas remembered him.

184:1.3 (1979.1) When Jesus was young, Annas had taken a great interest in him, but now his revenues were threatened by what Jesus had so recently done in driving the money-changers and other commercial traders out of the temple. This act had aroused the enmity of the former high priest far more than had Jesus' teachings.

184:1.4 (1979.2) Annas entered his spacious audience chamber, seated himself in a large chair, and commanded that Jesus be brought before him. After a few moments spent in silently surveying the Master, he said: “You realize that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your teaching since you are disturbing the peace and order of our country.” As Annas looked inquiringly at Jesus, the Master looked full into his eyes but made no reply. Again Annas spoke, “What are the names of your disciples, besides Simon Zelotes, the agitator?” Again Jesus looked down upon him, but he did not

안나스는 자기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웠으므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친절하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냐? 네게 이뤄질 재판의 선고를 결정할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했다: “**안나스**여,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내게 대해 아무 힘도 없음을, 당신도 압니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잘 모르지만, 친구여,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안나스**에게 말씀하는 친절한 태도가 그를 대체로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팔레스틴**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 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내가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당신은 잘 압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여러 번 가르쳤으며, 거기서 모든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이 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은밀히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습니까? 당신은 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온 **예루살렘**이 들었고, 직접은 아니지만 당신도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 서 있던, 그 저택의 사무장이 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님께 그런 말로 대답하느냐?”고 했다. **안나스**는 그 사무장을 꾸짖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친구여,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안나스는 사무장이 **예수**를 때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했지만, 너무 우쭐한 나머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당황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하인과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홀로 내버려뒀다.

그가 돌아와 **주님** 옆으로 가서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했다: “**안나스**여,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다: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나?” **예수**께서는 **안나스**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만 대답했다.

이 무렵에, **예수**를 언제쯤 **산헤드린** 법정 앞으로 끌고 올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가야바**의 저택으로부터 심부름꾼들이 도착했으며; 거의 날이

answer.

184:1.5 (1979.3) Annas was considerably disturbed by Jesus' refusal to answer his questions, so much so that he said to him: "Do you have no care as to whether I am friendly to you or not? Do you have no regard for the power I have in determining the issues of your coming trial?"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Annas, you know that you could have no power over me unless it were permitted by my Father. Some would destroy the Son of Man because they are ignorant; they know no better, but you, friend, know what you are doing. How can you, therefore, reject the light of God?"

184:1.6 (1979.4) The kindly manner in which Jesus spoke to Annas almost bewildered him. But he had already determined in his mind that Jesus must either leave Palestine or die; so he summoned up his courage and asked: "Just what is it you are trying to teach the people? What do you claim to be?" Jesus answered: "You know full well that I have spoken openly to the world. I have taught in the synagogues and many times in the temple, where all the Jews and many of the gentiles have heard me. In secret I have spoken nothing; why, then, do you ask me about my teaching? Why do you not summon those who have heard me and inquire of them? Behold, all Jerusalem has heard that which I have spoken even if you have not yourself heard these teachings." But before Annas could make reply, the chief steward of the palace, who was standing near, struck Jesus in the face with his hand, saying, "How dare you answer the high priest with such words?" Annas spoke no words of rebuke to his steward, but Jesus addressed him, saying, "My friend, if I have spoken evil, bear witness against the evil; but if I have spoken the truth, why, then, should you smite me?"

184:1.7 (1979.5) Although Annas regretted that his steward had struck Jesus, he was too proud to take notice of the matter. In his confusion he went into another room, leaving Jesus alone with the household attendants and the temple guards for almost an hour.

184:1.8 (1979.6) When he returned, going up to the Master's side, he said, "Do you claim to be the Messiah, the deliverer of Israel?" Said Jesus: "Annas, you have known me from the times of my youth. You know that I claim to be nothing except that which my Father has appointed, and that I have been sent to all men, gentile as well as Jew." Then said Annas: "I have been told that you have claimed to be the Messiah; is that true?" Jesus looked upon Annas but only replied, "So you have said."

184:1.9 (1980.1) About this time messengers arrived from the palace of Caiaphas to inquire what time Jesus would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the

셀 무렵이었으므로,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하여 성전 경비병들로 호위하게 해서 **가야바**에게 보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잠시 후에 그들을 따라갔다.

2.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경비병과 군인 일행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로 들어갈 때, **요한 세베데**는 **로마** 군인 지휘관 옆에서 걸어갔다. **유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남았고,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병들과 함께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에, **유다**도 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을 보자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갔고, **주님**에 대한 실제 재판이 나중에 거기서 벌어질 것을 알았다. **유다**가 떠난 직후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섰고,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호송해 들어가려고 할 때 **요한**이 그를 봤다. 문을 지키는 여종을 **요한**이 잘 알았으므로, 그 여자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기꺼이 들어왔다.

안마당에 들어선 **베드로**는, 밤공기가 차가웠으므로 숯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려고 했다. 그는 **예수**의 적들 가운데 부적절한 곳에 와 있음을 크게 느꼈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다. **주님**은, **요한**에게 부탁한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주님**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동안 생명을 위협롭게 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받은 다른 사도 중에 **베드로**도 포함됐다.

베드로는 저택 대문으로 오기 직전에 칼을 버렸으므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며, **예수**께서 체포됐음을 거의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안나스**의 안마당에 와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쪼고 있다는-- 실제 상황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다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저택에 들어가도록 허락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그가 하인들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문지기에게 그를 들여보내도록 부탁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직후에, 그리고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장난기 어린 태도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 여자에게 부탁해서 저택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요한**이었으므로, 이때 이렇게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베드로**가 놀랄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 그는 너무 긴장된 상태였으므로, 제자의 신분을 알아보는 듯한 그 말로 인해 혼미해졌으며, 오직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살아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석에서 여종에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Sanhedrin, and since it was nearing the break of day, Annas thought best to send Jesus bound and in the custody of the temple guards to Caiaphas. He himself followed after them shortly.

2. PETER IN THE COURTYARD

184:2.1 (1980.2) As the band of guards and soldiers approached the entrance to the palace of Annas, John Zebedee was marching by the side of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Judas had dropped some distance behind, and Simon Peter followed afar off. After John had entered the palace courtyard with Jesus and the guards, Judas came up to the gate but, seeing Jesus and John, went on over to the home of Caiaphas, where he knew the real trial of the Master would later take place. Soon after Judas had left, Simon Peter arrived, and as he stood before the gate, John saw him just as they were about to take Jesus into the palace. The portress who kept the gate knew John, and when he spoke to her, requesting that she let Peter in, she gladly assented.

184:2.2 (1980.3) Peter, upon entering the courtyard, went over to the charcoal fire and sought to warm himself, for the night was chilly. He felt very much out of place here among the enemies of Jesus, and indeed he was out of place. The Master had not instructed him to keep near at hand as he had admonished John. Peter belonged with the other apostles, who had been specifically warned not to endanger their lives during these time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of their Master.

184:2.3 (1980.4) Peter threw away his sword shortly before he came up to the palace gate so that he entered the courtyard of Annas unarmed. His mind was in a whirl of confusion; he could scarcely realize that Jesus had been arrested. He could not grasp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 that he was here in the courtyard of Annas, warming himself beside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He wondered what the other apostles were doing and, in turning over in his mind as to how John came to be admitted to the palace, concluded that it was because he was known to the servants, since he had bidden the gate-keeper admit him.

184:2.4 (1980.5) Shortly after the portress let Peter in, and while he was warming himself by the fire, she went over to him and mischievously said, “Are you not also one of this man's disciples?” Now Peter should not have been surprised at this recognition, for it was John who had requested that the girl let him pass through the palace gates; but he was in such a tense nervous state that this identification as a disciple threw him off his balance, and with only one thought uppermost in his mind — the thought of escaping with his life — he promptly answered the maid's question by saying, “I am

곧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제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랐으며; 이 고발인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추종자도 아니다.”

이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 옆에 와서 다시 물었다: “당신이 이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내게 부탁했기 때문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자매가, 이 사람과 함께 당신을 성전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부인합니까?” 여종의 고발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심한 저주와 맹세로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며; 그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사람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

베드로는 숯불 곁을 떠나서 잠시 안마당을 거닐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목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냉정을 되찾으면서, 숯불 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다.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인인데,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니, 역시 갈릴리인처럼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베드로는 불 곁에서 떠나 혼자 입구로 가 있음으로써,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피하려고 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혼자 있는 후에, 문을 지키는 여종과 그 자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짓궂게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다시 부인했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다시 부인하는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일찍 주님이 그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가 죄의식으로 무너져 내린 무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을 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호송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다. 베드로의 옆으로 지나가던 주님은, 전에 자신만만하고 걸으며 용감했던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스런 표정을 봤으며, 돌이켜서 베드로를 잠깐 바라봤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님의 얼굴에는,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필사적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연민의 정이 뒤섞여 있었다.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 문을 나선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으나, 잠시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길옆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린 후에, 형 안드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야영지 쪽으로 향했다.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다윗 세베대 밖에 없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

not.”

184:2.5 (1980.6) Very soon another servant came up to Peter and asked: “Did I not see you in the garden when they arrested this fellow? Are you not also one of his followers?” Peter was now thoroughly alarmed; he saw no way of safely escaping from these accusers; so he vehemently denied all connection with Jesus, saying, “I know not this man, neither am I one of his followers.”

184:2.6 (1980.7) About this time the portress of the gate drew Peter to one side and said: “I am sure you are a disciple of this Jesus, not only because one of his followers bade me let you in the courtyard, but my sister here has seen you in the temple with this man. Why do you deny this?” When Peter heard the maid accuse him, he denied all knowledge of Jesus with much cursing and swearing, again saying, “I am not this man’s follower; I do not even know him; I never heard of him before.”

184:2.7 (1981.1) Peter left the fireside for a time while he walked about the courtyard. He would have liked to have escaped, but he feared to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Getting cold, he returned to the fireside, and one of the men standing near him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is man’s disciples. This Jesus is a Galilean, and your speech betrays you, for you also speak as a Galilean.” And again Peter denied all connection with his Master.

184:2.8 (1981.2) Peter was so perturbed that he sought to escape contact with his accusers by going away from the fire and remaining by himself on the porch. After more than an hour of this isolation, the gate-keeper and her sister chanced to meet him, and both of them again teasingly charged him with being a follower of Jesus. And again he denied the accusation. Just as he had once more denied all connection with Jesus, the cock crowed,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s of warning spoken to him by his Master earlier that same night. As he stood there, heavy of heart and crushed with the sense of guilt, the palace doors opened, and the guards led Jesus past on the way to Caiaphas. As the Master passed Peter, he saw, by the light of the torches, the look of despair on the face of his former self-confident and superficially brave apostle, and he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Peter never forgot that look as long as he lived. It was such a glance of commingled pity and love as mortal man had never beheld in the face of the Master.

184:2.9 (1981.3) After Jesus and the guards passed out of the palace gates, Peter followed them, but only for a short distance. He could not go farther. He sat down by the side of the road and wept bitterly. And when he had shed these tears of agony, he turned his steps back toward the camp, hoping to find his brother, Andrew. On arriving at the camp, he found only David Zebedee, who sent

의 형에게 **베드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 하나를 같이 보냈다.

베드로의 전체 체험은, **감람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마당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주님**을 여러 번 부인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음을 뜻하는데, 그 성 안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닭 울음소리가 있기까지, 그가 몸을 녹이기 위해 지붕 밑을 오가면서 오직 생각한 것은, 하인들의 고소를 어떻게 교묘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자기와 **예수**의 관계를 밝히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킬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동안, 이 하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도의적 혹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골몰했으며, 신분이 드러나서 체포되고 감금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도취돼서, 정말로 기뻐했다. 닭이 울 때까지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천국 대사로서의 특권에 걸맞게 사는 데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타협하고 최소의 저항이 있는 길로 첫 발을 뒀으므로, 이미 결정한 대로 과정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베드로**에게 멍백하지 않았다. 잘못 시작하고 나서 돌이켜 바로잡는 데는 위대하고 숭고한 성품이 요구된다. 사람의 정신은, 일단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야,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완전히 믿었고, 여러 번 부인한 이 비극적인 밤의 체험이 있기 전과 똑같이 용납됐음을 알았다.

3.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이 금요일 아침 세 시 반쯤에, 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심문 법정이 개정됐음을 선언했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예수**를 그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산헤드린**은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대다수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즉 율법_위반, 신성 모독,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의 전통을 경멸한 것에 대한 비공식 고소에 따라서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했었다.

이번 회의는 정상적으로 소집되는 **산헤드린** 회의가 아니었으며, 평상시 회의장소인, 성전 안의 다듬어진 돌로 지어진 방에서 모인 것도 아니었다. 약 30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대제사장의 저

a messenger to direct him to where his brother had gone to hide in Jerusalem.

184:2.10 (1981.4) Peter's entire experience occurred in the courtyard of the palace of Annas on Mount Olivet. He did not follow Jesus to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Caiaphas. That Peter was brought to the realization that he had repeatedly denied his Master by the crowing of a cock indicates that this all occurred outside of Jerusalem since it was against the law to keep poultry within the city proper.

184:2.11 (1981.5) Until the crowing of the cock brought Peter to his better senses, he had only thought, as he walked up and down the porch to keep warm, how cleverly he had eluded the accusations of the servants, and how he had frustrated their purpose to identify him with Jesus. For the time being, he had only considered that these servants had no moral or legal right thus to question him, and he really congratulated himself over the manner in which he thought he had avoided being identified and possibly subjected to arrest and imprisonment. Not until the cock crowed did it occur to Peter that he had denied his Master. Not until Jesus looked upon him, did he realize that he had failed to live up to his privileges as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184:2.12 (1981.6) Having taken the first step along the path of compromise and least resistance, there was nothing apparent to Peter but to go on with the course of conduct decided upon. It requires a great and noble character, having started out wrong, to turn about and go right. All too often one's own mind tends to justify continuance in the path of error when once it is entered upon.

184:2.13 (1982.1) Peter never fully believed that he could be forgiven until he met his Master after the resurrection and saw that he was received just as before the experiences of this tragic night of the denials.

3. BEFORE THE COURT OF SANHEDRISTS

184:3.1 (1982.2) It was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this Friday morning when the chief priest, Caiaphas, called the Sanhedrist court of inquiry to order and asked that Jesus be brought before them for his formal trial. On three previous occasions the Sanhedrin, by a large majority vote, had decreed the death of Jesus, had decided that he was worthy of death on informal charges of lawbreaking, blasphemy, and flouting the traditions of the fathers of Israel.

184:3.2 (1982.3) This was not a regularly called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was not held in the usual place, the chamber of hewn stone in the temple. This was a special trial court of some

택에 소집된 특별 재판 법정이었다. **요한 세베대**는,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 전체 기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및 일부 **바리새인**이, 자기네 지위를 교란시키고 권세에 도전하는 **예수**가,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원한에 사무친 자기네 손아귀를 그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유대인은 누군가에게 중형을 선고할 때, 증인 선택과 재판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야바**는 편견 없는 재판관이기보다 오히려 기소자였다.

예수께서는 평상시 복장과 두 손을 뒤로 묶인 모습으로 이 법정 앞에 섰다. 법정 전체가 그의 위풍당당함에 술렁거렸고 당황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법정 앞에서 그토록 태연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죄인을 본 적이 없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만 죄수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었다. **유다**는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이 특히 배신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반대하는 거짓 증인이 20명 이상 준비됐지만, 그들의 증언은 너무 모순되고 너무 명백하게 날조된 것이어서, **산헤드린** 회원들조차 그 엉터리 연기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예수**께서는 거기 서서 이 위증자들을 온화한 모습으로 지켜봤으며, 그의 이런 태도로 인해 거짓 증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다. 거짓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여러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비슷하게라도 두 증인이 일치될 만하게 한 첫 증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던 도중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삼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언급된 그 논평을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지적했던 사실 이외에도, 그것은 **예수**께서 한 말씀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대제사장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고함쳤음에도, **예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거기 서 있었다. 증오심, 광신, 그리고 사악한 과장이, 이 위증자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었으므로, 그들의 증언은 그 자체에 얽혀서 실패했다.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바로 평온하고 웅장한 **주님**의 침묵이었다.

thirty Sanhedrists and was conven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John Zebedee was present with Jesus throughout this so-called trial.

184:3.3 (1982.4) How these chief priests, scribes, Sadducees, and some of the Pharisees flattered themselves that Jesus, the disturber of their position and the challenger of their authority, was now securely in their hands! And they were resolved that he should never live to escape their vengeful clutches.

184:3.4 (1982.5) Ordinarily, the Jews, when trying a man on a capital charge, proceeded with great caution and provided every safeguard of fairness in the selection of witnesses and the entire conduct of the trial. But on this occasion, Caiaphas was more of a prosecutor than an unbiased judge.

184:3.5 (1982.6) Jesus appeared before this court clothed in his usual garments and with his hands bound together behind his back. The entire court was startled and somewhat confused by his majestic appearance. Never had they gazed upon such a prisoner nor witnessed such composure in a man on trial for his life.

184:3.6 (1982.7) The Jewish law required that at least two witnesses must agree upon any point before a charge could be laid against the prisoner. Judas could not be used as a witness against Jesus because the Jewish law specifically forbade the testimony of a traitor. More than a score of false witnesses were on hand to testify against Jesus, but their testimony was so contradictory and so evidently trumped up that the Sanhedrists themselves were very much ashamed of the performance. Jesus stood there, looking down benignly upon these perjurers, and his very countenance disconcerted the lying witnesses. Throughout all this false testimony the Master never said a word; he made no reply to their many false accusations.

184:3.7 (1982.8) The first time any two of their witnesses approached even the semblance of an agreement was when two men testified that they had heard Jesus say in the course of one of his temple discourses that he would “destroy this temple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make another temple without hands.” That was not exactly what Jesus sai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he pointed to his own body when he made the remark referred to.

184:3.8 (1982.9) Although the high priest shouted at Jesus, “Do you not answer any of these charges?” Jesus opened not his mouth. He stood there in silence while all of these false witnesses gave their testimony. Hatred, fanaticism, and unscrupulous exaggeration so characterized the words of these perjurers that their testimony fell in its own entanglements. The very best refutation of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된 직후에, **안나스**가 도착하여 **가야바**의 옆 자리에 앉았다. **안나스**가 마침내 일어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예수**의 협박은, 그에 대한 세 가지 죄목(罪目)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그는 사람들에게 위험스런 중상모략을 했음. 그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르쳤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속였음.

2. 그는 신성시되는 성전을 부수도록 폭동을 지지하는 광신적 혁명가였음.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3. 손대지 않고 새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는 마법을 가르친 것임.

예수께서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죽을 죄를 범했다고 **산헤드린** 전체가 이미 합의했으나, 그들은 이제 자기네 죄수에게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의 행위와 교훈에 관해 더 확실한 죄를 씌우고자 했다.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확고히 해둬야만 함을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위험한 선생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야바**는, **주님**이 완전한 침착성과 흔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그 죄수가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따라서, 그는 **예수** 옆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얼굴 앞에 비난조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네가 **구원주**,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대답했다: “내가 **구원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며, **사람의 아들**은 곧 권능을 입고 다시 하늘의 무리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겹옷을 찢으며 고함쳤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보라, 이 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너희 모두 들었다.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죽여 마땅하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자”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증여 사명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 외에는, **안나스**와 **산헤드린** 회원들의 어떤 질문에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자, 그는 즉시 명확하게 그렇

their false accusations was the Master's calm and majestic silence.

184:3.9 (1983.1) Shortly after the beginning of the testimony of the false witnesses, Annas arrived and took his seat beside Caiaphas. Annas now arose and argued that this threat of Jesus to destroy the temple was sufficient to warrant three charges against him:

184:3.10 (1983.2) 1. That he was a dangerous traducer of the people. That he taught them impossible things and otherwise deceived them.

184:3.11 (1983.3) 2. That he was a fanatical revolutionist in that he advocated laying violent hands on the sacred temple, else how could he destroy it?

184:3.12 (1983.4) 3. That he taught magic inasmuch as he promised to build a new temple, and that without hands.

184:3.13 (1983.5) Already had the full Sanhedrin agreed that Jesus was guilty of death-deserving transgressions of the Jewish laws, but they were now more concerned with developing charges regarding his conduct and teachings which would justify Pilate in pronouncing the death sentence upon their prisoner. They knew that they must secure the consent of the Roman governor before Jesus could legally be put to death. And Annas was minded to proceed along the line of making it appear that Jesus was a dangerous teacher to be abroad among the people.

184:3.14 (1983.6) But Caiaphas could not longer endure the sight of the Master standing there in perfect composure and unbroken silence. He thought he knew at least one way in which the prisoner might be induced to speak. Accordingly, he rushed over to the side of Jesus and, shaking his accusing finger in the Master's face, said: "I adjure you, in the name of the living God, that you tell us whether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God." Jesus answered Caiaphas: "I am. Soon I go to the Father, and presently shall the Son of Man be clothed with power and once more reign over the hosts of heaven."

184:3.15 (1983.7) When the high priest heard Jesus utter these words, he was exceedingly angry, and rending his outer garments, he exclaimed: "What further need have we of witnesses? Behold, now have you all heard this man's blasphemy. What do you now think should be done with this lawbreaker and blasphemer?" And they all answered in unison, "He is worthy of death; let him be crucified."

184:3.16 (1983.8) Jesus manifested no interest in any question asked him when before Annas or the Sanhedrists except the one question relative to his bestowal mission. When asked if he were the Son of God, he instantly and unequivocally answered in

다고 대답했다.

안나스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로마**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예수**를 확실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갖춘 후에 **빌라도**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그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어서, 정오가 지난 후에는 세속적인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빌라도**가 오직 **유월절** 축제 기간에만 **예루살렘**에 머물기 때문에, **유대지방**의 **로마** 행정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나스**는 법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너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법정의 다른 요원들도 방을 나가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 중에 여럿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자, **안나스**는 무척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무질서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재판의 이 첫 공판이 내 시 반쯤에 끝났다.

전통에 눈멀고 편파적인 30명의 거짓 재판관은, 거짓 증인들과 함께 감히 우주의 의로운 **창조주**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리고 흥분한 이 고발인들은, **하나님**이자 인간인 **주님**의 장엄한 침묵과 뛰어난 인내심 때문에 격분했다. 그의 침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며; 그의 말투는 겁 없이 도전적이었다. 그는 그들의 헐박에 동요되지 않았고,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때에도 그는 그들을 사랑했고, 할 수만 있다면 구원했을 것이다.

4. 굴욕적인 시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법정이 두 번 열려야 했다. 이 두 번째 법정은 첫 번째 법정 다음 날에 열려야 했고, 그 사이의 시간은, 법정 위원들이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하도록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겨우 한 시간 기다렸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객실에 남았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갖은 무례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을 모욕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를 조롱했고, 침을 뱉었으며, 심하게 때렸다. 회초리로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구원주**라면, 너를 때린 이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말했다. 저항하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은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했다.

무지하고 무정한 경비병과 하인들 앞에서 고

the affirmative.

184:3.17 (1983.9) Annas desired that the trial proceed further, and that charges of a definite nature regarding Jesus' relation to the Roman law and Roman institutions be formulated for subsequent presentation to Pilate. The councilors were anxious to carry these matters to a speedy termination, not only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and no secular work should be done after noon, but also because they feared Pilate might any time return to the Roman capital of Judea, Caesarea, since he was in Jerusalem only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184:3.18 (1983.10) But Annas did not succeed in keeping control of the court. After Jesus had so unexpectedly answered Caiaphas, the high priest stepped forward and smote him in the face with his hand. Annas was truly shocked as the other members of the court, in passing out of the room, spit in Jesus' face, and many of them mockingly slapped him with the palms of their hands. And thus in disorder and with such unheard-of confusion this first session of the Sanhedrist trial of Jesus ended at half past four o'clock.

184:3.19 (1984.1) Thirty prejudiced and tradition-blinded false judges, with their false witnesses, are presuming to sit in judgment on the righteous Creator of a universe. And these impassioned accusers are exasperated by the majestic silence and superb bearing of this God-man. His silence is terrible to endure; his speech is fearlessly defiant. He is unmoved by their threats and undaunted by their assaults. Man sits in judgment on God, but even then he loves them and would save them if he could.

4. THE HOUR OF HUMILIATION

184:4.1 (1984.2) The Jewish law required that, in the matter of passing the death sentence, there should be two sessions of the court. This second session was to be held on the day following the first, and the intervening time was to be spent in fasting and mourning by the members of the court. But these men could not await the next day for the confirmation of their decision that Jesus must die. They waited only one hour. In the meantime Jesus was left in the audience chamber in the custody of the temple guards, who, with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amused themselves by heaping every sort of indignity upon the Son of Man. They mocked him, spit upon him, and cruelly buffeted him. They would strike him in the face with a rod and then say, "Prophecy to us, you the Deliverer, who it was that struck you." And thus they went on for one full hour, reviling and mistreating this unresisting man of Galilee.

184:4.2 (1984.3) During this tragic hour of suffering

통당하고 조롱 받는 이 비참한 시간 동안, **요한 세베대**는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렸다. 이런 가혹 행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물러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사도가 그 방에 남아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보게 된다면, **요한**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참지 못하고 덤벼들다가 죽게 될 수도 있음을 **주님**은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이 끔찍한 시간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인격 관계 속에 결합된, 인류 가운데서 온화하고 예민한 이 혼에게는, 무지하고 잔인한 경비병과 하인들의 처분에 맡겨진 이 끔찍한 시간보다 더 쓰라린 굴욕의 잔은 없었는데, 이들은 소위 **산헤드린** 법정의 위원들이 보여준 태도에 자극 받아서 그를 학대했다.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죄로 어두워진 불행한 **유란시아**라는 구체에서 무지하고 미혹된 피조물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광경을,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이 봤을 때, 방대한 우주로 퍼져나간 그들의 분노의 전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인간의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지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도록 유도한, 사람 속에 있는 이 동물적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지혜가 뛰어나고 영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악한 야만성이, 반{半} 문명화된 사람 속에 여전히 숨어있다. 반항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그들이 육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기쁨을 나타낼 때, 문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의 악한 야비함과 야만적인 만행을 똑똑히 보라. 이런 모욕과 조롱 그리고 구타가 **주님**께 가해졌을 때, 그가 방어하지 않은 것이지,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패배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의미에서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때는, 멀리 퍼져가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자, 유지자, 및 구원자로서, 오랫동안의 다사{多事}한 생애에서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승리하는 순간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전체 인생을 다 살았으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계시하는, 새롭고 전례 없는 일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때, 피조물의 인격이 고립되는 온갖 두려움을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여러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마침내 성취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주저함 없이 단언하며; 그 숭고한 최고의 체험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에 기초하여,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천국을 믿는 각자가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을 권고한다. **예수**의 종교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기쁨이 돼줌으로써, 영적으로 고립되고 시공우주에서 고독한 이 세상의 필사자들은, 인격의 고립으로부터, 그리고 아울러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 및 연관된 무력감을

and mock trials before the ignorant and unfeeling guards and servants, John Zebedee waited in lonely terror in an adjoining room. When these abuses first started, Jesus indicated to John, by a nod of his head, that he should retire. The Master well knew that, if he permitted his apostle to remain in the room to witness these indignities, John's resentment would be so aroused as to produce such an outbreak of protesting indignation as would probably result in his death.

184:4.3 (1984.4) Throughout this awful hour Jesus uttered no word. To this gentle and sensitive soul of humankind, joined in personality relationship with the God of all this universe, there was no more bitter portion of his cup of humiliation than this terrible hour at the mercy of these ignorant and cruel guards and servants, who had been stimulated to abuse him by the example of the members of this so-called Sanhedrist court.

184:4.4 (1984.5) The human heart cannot possibly conceive of the shudder of indignation that swept out over a vast universe as the celestial intelligences witnessed this sight of their beloved Sovereign submitting himself to the will of his ignorant and misguided creatures on the sin-darkened sphere of unfortunate Urantia.

184:4.5 (1984.6) What is this trait of the animal in man which leads him to want to insult and physically assault that which he cannot spiritually attain or intellectually achieve? In the half-civilized man there still lurks an evil brutality which seeks to vent itself upon those who are superior in wisdom and spiritual attainment. Witness the evil coarseness and the brutal ferocity of these supposedly civilized men as they derived a certain form of animal pleasure from this physical attack upon the unresisting Son of Man. As these insults, taunts, and blows fell upon Jesus, he was undefending but not defenseless. Jesus was not vanquished, merely uncontending in the material sense.

184:4.6 (1985.1) These are the moments of the Master's greatest victories in all his long and eventful career as maker, upholder, and savior of a vast and far-flung universe. Having lived to the full a life of revealing God to man, Jesus is now engaged in making a new and unprecedented revelation of man to God. Jesus is now revealing to the worlds the final triumph over all fears of creature personality isolation. The Son of Man has finally achieved the realization of identity as the Son of God. Jesus does not hesitate to assert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and on the basis of the fact and truth of that supreme and supernal experience, he admonishes every kingdom believer to become one with him even as he and his Father are one. The living experience in the religion of Jesus thus becomes the sure and certain technique whereby the spiritually isolated and cosmically lonely mortals of earth are enabled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앙 아들은, 하늘 나라라는 우에 있는 실체를 이루어, 개인적 및 세계적 자아 고립 상태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구조됨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에서 영적으로 사회화하는--즉 완전성 달성이라는 신성한 운명을 영원토록 실현해 가는 것과 관련된 저 높은 곳의 시민신분을 얻는-- 환희와 웅장함을 점점 더 맛본다.

to escape personality isolation, with all its consequences of fear and associated feelings of helplessness. In the fraternal realitie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faith sons of God find final deliverance from the isolation of the self, both personal and planetary. The God-knowing believer increasingly experiences the ecstasy and grandeur of spiritual socialization on a universe scale — citizenship on high in association with the eternal realization of the divine destiny of perfection attainment.

5. 법정의 두 번째 회합

다섯 시 반에 법정이 다시 모였고, **예수**께서는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열방으로 끌려갔다. **빌라도**에게 제시할 고소장(告訴狀)을 법정에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동안, 여기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감시했다. **안나스**는, 신성 모독죄만 갖고는 **빌라도**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동역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법정의 이 두 번째 회합이 있는 동안 **유다**도 참석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열린 법정은 반 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빌라도** 앞으로 가려고 휴회했을 때, 세 가지 항목에 의거해서 **예수**가 사형 받아 마땅하다는 기소장을 작성했다:

1. **유대** 국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임;민족을 속였고 반역을 일으키도록 선동했음.

2.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음.

3. 새로운 종류의 나라의 왕이요 창설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제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려 했음.

이런 진행 전체는 변칙적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에도 전적으로 어긋났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도, 변론을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그가 의도하는 의미를 설명하도록 **예수**에게 질문하지도 않았다.

법정이 그에게 일관되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은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전적으로 그의 직접 고백에 의존하려고 했다. 심지어 신성 모독에 관한 것에서도, 그들은 사형 선고를 위한 공식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기 위해 세 가지 기소 조항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 조항들은 증언도 듣지 않은 것이었고, 기소된 죄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 일이 끝나자, **바리새인**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며;그들도 **예수**께서 죽게 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증인도 없이, 그

5. THE SECOND MEETING OF THE COURT

184:5.1 (1985.2) At five-thirty o'clock the court reassembled, and Jesus was led into the adjoining room, where John was waiting. Here the Roman soldier and the temple guards watched over Jesus while the court began the formulation of the charges which were to be presented to Pilate. Annas made it clear to his associates that the charge of blasphemy would carry no weight with Pilate. Judas was present during this second meeting of the court, but he gave no testimony.

184:5.2 (1985.3) This session of the court lasted only a half hour, and when they adjourned to go before Pilate, they had drawn up the indictment of Jesus, as being worthy of death, under three heads:

184:5.3 (1985.4) 1. That he was a perverter of the Jewish nation; he deceived the people and incited them to rebellion.

184:5.4 (1985.5) 2. That he taught the people to refuse to pay tribute to Caesar.

184:5.5 (1985.6) 3. That, by claiming to be a king and the founder of a new sort of kingdom, he incited treason against the emperor.

184:5.6 (1985.7) This entire procedure was irregular and wholly contrary to the Jewish laws. No two witnesses had agreed on any matter except those who testified regarding Jesus' statement about destroying the temple and raising it again in three days. And even concerning that point, no witnesses spoke for the defense, and neither was Jesus asked to explain his intended meaning.

184:5.7 (1985.8) The only point the court could have consistently judged him on was that of blasphemy, and that would have rested entirely on his own testimony. Even concerning blasphemy, they failed to cast a formal ballot for the death sentence.

184:5.8 (1985.9) And now they presumed to formulate three charges, with which to go before Pilate, on which no witnesses had been heard, and which were agreed upon while the accused prisoner was absent. When this was done, three of the Pharisees took their leave; they wanted to see Jesus destroyed, but they would not formulate

리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법정에 다시 나가지 못했다. 죄 없는 생애를 재판하는 동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낭독되는 것을 듣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공식 기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요한**과 경비병들과 함께 같은 방에 있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이 열리는 동안, 대제사장의 저택에 있던 부인들 몇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그 색다른 죄수를 보려고 거기에 와서,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네게 말해도,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네게 물어봐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 그날 아침 여섯 시에 **가야바**의 집에서 끌려 나갔는데, **산헤드린** 법정에서 매우 불의하고 변칙적으로 결정한 사형 선고를 확정받기 위해서였다.

charges against him without witnesses and in his absence.

184:5.9 (1986.1) Jesus did not again appear before the Sanhedrist court. They did not want again to look upon his face as they sat in judgment upon his innocent life. Jesus did not know (as a man) of their formal charges until he heard them recited by Pilate.

184:5.10 (1986.2) While Jesus was in the room with John and the guards, and while the court was in its second session, some of the women about the high priest's palace, together with their friends, came to look upon the strange prisoner, and one of them asked him, “Are you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Jesus answered: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me; and if I ask you, you will not answer.”

184:5.11 (1986.3) At six o'clock that morning Jesus was led forth from the home of Caiaphas to appear before Pilate for confirm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which this Sanhedrist court had so unjustly and irregularly decreed.

제 185편. 빌라도의 심문

⇨ 184

유랜시아 책

18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85편
빌라도의 심문

섹션

소개

1. 본디오 빌라도
2. 빌라도 앞에 선 예수
3.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4. 헤롯 앞에 선 예수
5. 빌라도에게 돌아온 예수
6.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7.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8. 빌라도의 비참한 굴복

PAPER 185
THE TRIAL BEFORE PILATE

SECTIONS

Introduction

1. Pontius Pilate
2. Jesus Appears Before Pilate
3. The Private Examination by Pilate
4. Jesus Before Herod
5. Jesus Returns to Pilate
6. Pilate's Last Appeal
7. Pilate's Last Interview
8. Pilate's Tragic Surrender

소개

서기 30년 4월 7일, 이 금요일 아침 여섯 시 조금 지난 뒤에, 예수께서는 로마인 행정관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시리아 지방총독의 직접 감독 하에, 유대지방, 사마리아, 및 이두메를 다스렸다. 밧줄로 묶여 있는 주님을 성전 경비병들이 로마 총독 앞으로 데려왔으며, (주로 사두개인인)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 가롯 유다, 및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해서, 오십 명 정도의 고소인과 사도 요한이 따라왔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 데 로마 군인을 동원 하도록 허락받으려고 전날 저녁에 왔던 사람들로 부터, 예수가 일찍 자기 앞으로 끌려오리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침 일찍 몰려오는 이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안토니아의 요새 곁에 있는 집정관 관저(官邸) 앞에서 열리기로 계획됐는데, 그곳은 빌라도가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릴 때 본부로 사용하는 장소였다.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는 일 대부분을 집정

INTRODUCTION

185:0.1 (1987.1) SHORTLY after six o'clock on this Friday morning, April 7, A.D. 30, Jesus was brought before Pilate, the Roman procurator who governed Judea, Samaria, and Idumea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legatus of Syria. The Master was taken into the presence of the Roman governor by the temple guards, bound, and was accompanied by about fifty of his accusers, including the Sanhedrist court (principally Sadduceans), Judas Iscariot, and the high priest, Caiaphas, and by the Apostle John. Annas did not appear before Pilate.

185:0.2 (1987.2) Pilate was up and ready to receive this group of early morning callers, having been informed by those who had secured his consent, the previous evening, to employ the Roman soldiers in arresting the Son of Man, that Jesus would be early brought before him. This trial was arranged to take place in front of the praetorium, an addition to the fortress of Antonia, where Pilate and his wife made their headquarters when stopping in Jerusalem.

185:0.3 (1987.3) Though Pilate conducted much of

관 집무실에서 했지만, 공개 심문은 정문으로 연결된 바깥 계단에서 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부여된 특권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예비일에 누룩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방인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가 그들을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오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난 후에 청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곤 했다.

이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락을 꾸미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정결 예식과 전통적 규칙을 지키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졌다. 그리고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인간 복지의 사소한 일들에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신성한 본성을 지닌 높고 거룩한 책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만은 아니었다.

1.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지역들을 다스리는 제법 충실한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가 그를 **유대지방** 행정관으로서 10년이나 남아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런대로 선한 통치자였으나, 도덕적으로는 비겁했다.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과제의 본질을 납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도량이 넓지는 못했다. 이 **히브리인**이, 진짜 종교, 즉 그들이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수백만 **히브리인**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성지로 바라보며 **산헤드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그는 파악하지 못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런 뿌리 깊은 증오심은 일찍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모든 **로마** 식민지 가운데, **유대지방**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곳은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다룰 때 수반되는 문제를 똑바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 거의 치명적이고 자멸할만한 일련의 실책을 범했다. 그리고 이 실책으로 인해, **유대인**은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킬 듯한 행동을 취하면 됐고, **빌라도**는 곧 승복하곤 했다. 행정관의 이런 명백한 우유부단, 또는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주로 그가 **유대인**과 가졌던 몇 번의 논쟁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으며, 그때마다 그들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빌라도**가 자기네를 두려워하는 것, 즉 **티베리우스**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총독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이 경험을 이용했다.

Jesus' examination within the praetorium halls, the public trial was held outside on the steps leading up to the main entrance. This was a concession to the Jews, who refused to enter any gentile building where leaven might be used on this day of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Such conduct would not only render them ceremonially unclean and thereby debar them from partaking of the afternoon feast of thanksgiving but would also necessitate their subjection to purification ceremonies after sundown, before they would be eligible to partake of the Passover supper.

185:0.4 (1987.4) Although these Jews were not at all bothered in conscience as they intrigued to effect the judicial murder of Jesus, they were nonetheless scrupulous regarding all these matters of ceremonial cleanness and traditional regularity. And these Jews have not been the only ones to fail in the recognition of high and holy obligations of a divine nature while giving meticulous attention to things of trifling importance to human welfare in both time and eternity.

1. PONTIUS PILATE

185:1.1 (1987.5) If Pontius Pilate had not been a reasonably good governor of the minor provinces, Tiberius would hardly have suffered him to remain as procurator of Judea for ten years. Although he was a fairly good administrator, he was a moral coward. He was not a big enough man to comprehend the nature of his task as governor of the Jews. He failed to grasp the fact that these Hebrews had a *real* religion, a faith for which they were willing to die, and that millions upon millions of them, scattered here and there throughout the empire, looked to Jerusalem as the shrine of their faith and held the Sanhedrin in respect as the highest tribunal on earth.

185:1.2 (1988.1) Pilate did not love the Jews, and this deep-seated hatred early began to manifest itself. Of all the Roman provinces, none was more difficult to govern than Judea. Pilate never really understood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Jews and, therefore, very early in his experience as governor, made a series of almost fatal and well-nigh suicidal blunders. And it was these blunders that gave the Jews such power over him. When they wanted to influence his decisions, all they had to do was to threaten an uprising, and Pilate would speedily capitulate. And this apparent vacillation, or lack of moral courage, of the procurator was chiefly due to the memory of a number of controversies he had had with the Jews and because in each instance they had worsted him. The Jews knew that Pilate was afraid of them, that he feared for his position before Tiberius, and they employed this knowledge to the great disadvantage of the governor on

빌라도가 **유대인**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은, 몇 차례의 유감스런 충돌 결과로 발생했다. 우선, 그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모든 형상을 배격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선입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전임자의 수하에 있던 **로마** 군인의 관례대로, 자기 군인들이 **가이사**의 형상을 새긴 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이, 5일 동안이나 **빌라도** 앞에 나와서, 군기(軍旗)에서 이 형상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단호히 그들의 청을 거절했고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빌라도**는 무신론자였으므로,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이 반항하는 태도로 저택 앞에 몰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죽을 각오가 돼있다는 말을 전했을 때 크게 당황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이 기꺼이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결국 굴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의 기에서 형상을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이렇게 하여, 그날 이후로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의 번덕스러움에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던 그의 태도에서 약점을 발견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잃은 위신을 되찾기로 결심했고, 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의 벽에 황제의 방패들을 걸어놨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이 항의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항의를 거절하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호소했고, 황제는 감정을 해치는 방패를 치우라고 즉시 명령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전보다도 더 위신을 잃게 됐다.

유대인이 그를 냉대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큰 종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감히 성전 재정에서 돈을 취하려 한 일이었다. **유대인**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성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빌라도**의 이런 주제넘은 통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비난했다. 이런 결정 때문에 20회 이상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피를 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심각한 소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갈릴리인**이 학살당했는데, 심지어 제단에서 경배하다가 학살되기도 했다.

우유부단한 이 **로마** 통치자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 보장을 위해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았지만,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성전의 기물이 **그리심산**에 묻혀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무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올라갔고; 그의 약속과 달리, 신성시되는 기물을 숨겼다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

numerous occasions.

185:1.3 (1988.2) Pilate's disfavor with the Jews came about as a result of a number of unfortunate encounters. First, he failed to take seriously their deep-seated prejudice against all images as symbols of idol worship. Therefore he permitted his soldiers to enter Jerusalem without removing the images of Caesar from their banners, as had been the practice of the Roman soldiers under his predecessor. A large deputation of Jews waited upon Pilate for five days, imploring him to have these images removed from the military standards. He flatly refused to grant their petition and threatened them with instant death. Pilate, himself being a skeptic, did not understand that men of strong religious feelings will not hesitate to die for their religious convictions; and therefore was he dismayed when these Jews drew themselves up defiantly before his palace,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and sent word that they were ready to die. Pilate then realized that he had made a threat which he was unwilling to carry out. He surrendered, ordered the images removed from the standards of his soldiers in Jerusalem, and found himself from that day on to a large extent subject to the whims of the Jewish leaders, who had in this way discovered his weakness in making threats which he feared to execute.

185:1.4 (1988.3) Pilate subsequently determined to regain this lost prestige and accordingly had the shields of the emperor, such as were commonly used in Caesar worship, put up on the walls of Herod's palace in Jerusalem. When the Jews protested, he was adamant. When he refused to listen to their protests, they promptly appealed to Rome, and the emperor as promptly ordered the offending shields removed. And then was Pilate held in even lower esteem than before.

185:1.5 (1988.4) Another thing which brought him into great disfavor with the Jews was that he dared to take money from the temple treasury to pay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queduct to provide increased water supply for the millions of visitors to Jerusalem at the times of the great religious feasts. The Jews held that only the Sanhedrin could disburse the temple funds, and they never ceased to inveigh against Pilate for this presumptuous ruling. No less than a score of riots and much bloodshed resulted from this decision. The last of these serious outbreaks had to do with the slaughter of a large company of Galileans even as they worshiped at the altar.

185:1.6 (1988.5) It is significant that, while this vacillating Roman ruler sacrificed Jesus to his fear of the Jews and to safeguard his personal position, he finally was deposed as a result of the needless slaughter of Samaritans in connection with the pretensions of a false Messiah who led troops to Mount Gerizim, where he claimed the

는데, 이것을 구실로 쓸데없이 **사마리아인**을 학살한 탓에, 그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음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의 결과로, **시리아** 지방총독이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했다. **티베리우스**는 **빌라도**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죽었고, 그는 **유대지방** 행정관으로 재임명 받지 못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느낌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새 황제의 눈에도 벗어나고, 퇴직하여 **로잔느** 지방으로 갔으며, 나중에 거기서 자살했다.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시중드는 하녀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이 하녀는 천국 복음을 믿는 **페니키아인** 신자였다. **빌라도**가 죽은 후에, **클라우디아**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 오전에 일어난 많은 것을 설명한다.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빌라도**에게 지시할 수 있었는지--즉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여섯 시에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자기네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서슴없이 위협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 관리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덕만 있는 **로마** 총독이었다면, 그들의 잘못된 고소에 대해 결백하고 잘못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그 사람을, 피에 굶주린 이 종교 광신자들이 죽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정부는, 자격 없는 **빌라도**를 보내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도록 했을 때, 이미 큰 실수, 즉 세상의 일에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제국 내에서 최고의 지방 경영자를 보냈어야 했다.

2. 빌라도 앞에 선 예수

예수와 고발인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모였을 때, **로마** 총독이 나와서, 무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명한 후에 물었다.“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를 암살하기로 결단했던 **사두개인**과 의원(議員)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고소 이유도 자진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언도를 허락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이 사람이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께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죄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빌라도**는 그들이 지난 밤 내내 그의 죄에 대해 심의한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너희가 정확한 죄목에 합의하지 못

temple vessels were buried; and fierce riots broke out when he failed to reveal the hiding place of the sacred vessels, as he had promised. As a result of this episode, the legatus of Syria ordered Pilate to Rome. Tiberius died while Pilate was on the way to Rome, and he was not reappointed as procurator of Judea. He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regretful condemnation of having consente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Finding no favor in the eyes of the new emperor, he retired to the province of Lausanne, where he subsequently committed suicide.

185:1.7 (1989.1) Claudia Procula, Pilate's wife, had heard much of Jesus through the word of her maid-in-waiting, who was a Phoenician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fter the death of Pilate, Claudia became prominently identified with the spread of the good news.

185:1.8 (1989.2) And all this explains much that transpired on this tragic Friday forenoon.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e Jews presumed to dictate to Pilate — to get him up at six o'clock to try Jesus — and also why they did not hesitate to threaten to charge him with treason before the emperor if he dared to refuse their demands for Jesus' death.

185:1.9 (1989.3) A worthy Roman governor who had not become disadvantageously involved with the rulers of the Jews would never have permitted these bloodthirsty religious fanatics to bring about the death of a man whom he himself had declared to be innocent of their false charges and without fault. Rome made a great blunder, a far-reaching error in earthly affairs, when she sent the second-rate Pilate to govern Palestine. Tiberius had better have sent to the Jews the best provincial administrator in the empire.

2. JESUS APPEARS BEFORE PILATE

185:2.1 (1989.4) When Jesus and his accusers had gathered in front of Pilate's judgment hall, the Roman governor came out and, addressing the company assembled, asked, "What accusation do you bring against this fellow?" The Sadducees and councilors who had taken it upon themselves to put Jesus out of the way had determined to go before Pilate and ask for confirmation of the death sentence pronounced upon Jesus, without volunteering any definite charge. Therefore did the spokesman for the Sanhedrist court answer Pilate: "If this man were not an evildoer, we sh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to you."

185:2.2 (1989.5) When Pilate observed that they were reluctant to state their charges against Jesus, although he knew they had been all night engaged in deliberations regarding his guilt, he answered

했다면, 너희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자체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느냐?”

그러자 **산헤드린** 법정 서기가 **빌라도**에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형시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우리 민족을 소란하게 하는 이 자는,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을 인준 받으려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로마** 총독 앞에 왔다는 사실이,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회원들의 증오심과 불편한 심기뿐 아니라, 그들이 **빌라도**의 공정성, 명예, 및 위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배당하는 시민이 그 지방의 총독 앞에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정한 심문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범행 사실을 제시하지도 않고 사형 집행을 요구하다니, 얼마나 뻔뻔스런 일인가!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 가운데서 행한 것을 조금 알았고, **예수**에게 씌우려는 고소 내용은 **유대인**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추측했으므로; 이 사건을 그들 자체의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돌려보내려고 했다. 또한,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지독하게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끌고 온 동족 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고백하도록 만들면서 희열을 느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빌라도**가 아나톨리아로부터 더 자세히 들은 것은, 자정이 되기 직전인 불과 몇 시간 전이었으며, **예수**를 은밀히 체포하기에 **로마** 군인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였는데, **클라우디아**는 **유대교**로 어설픈 개종했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충분히 성숙한 신자가 됐다.

빌라도는 이 심문을 연기시키려고 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오전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인 이날은 쉬면서 경배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도 알았다.

접근해 오는 이 **유대인**의 무례한 태도에 심히 예민해진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지도 않고 사형을 언도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시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잠시 권 뒤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나는 심문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 문서로 고소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를 심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법정 서기에게 손짓했으며, 그가 **예수**에

them: “Since you have not agreed on any definite charges, why do you not take this man and pass judgment on him in accordance with your own laws?”

185:2.3 (1989.6) Then spoke the clerk of the Sanhedrin court to Pilate: “It is not lawful for us to put any man to death, and this disturber of our nation is worthy to die for the things which he has said and done. Therefore have we come before you for confirmation of this decree.”

185:2.4 (1989.7) To come before the Roman governor with this attempt at evasion discloses both the ill-will and the ill-humor of the Sanhedrists toward Jesus as well as their lack of respect for the fairness, honor, and dignity of Pilate. What effrontery for these subject citizens to appear before their provincial governor asking for a decree of execution against a man before affording him a fair trial and without even preferring definite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185:2.5 (1989.8) Pilate knew something of Jesus' work among the Jews, and he surmised that the charges which might be brought against him had to do with infringements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laws; therefore he sought to refer the case back to their own tribunal. Again, Pilate took delight in making them publicly confess that they were powerless to pronounce and execute the death sentence upon even one of their own race whom they had come to despise with a bitter and envious hatred.

185:2.6 (1990.1) It was a few hours previously, shortly before midnight and after he had granted permission to use Roman soldiers in effecting the secret arrest of Jesus, that Pilate had heard further concerning Jesus and his teaching from his wife, Claudia, who was a partial convert to Judaism, and who later on became a full-fledged believer in Jesus' gospel.

185:2.7 (1990.2) Pilate would have liked to postpone this hearing, but he saw the Jewish leaders were determined to proceed with the case. He knew that this was not only the forenoon of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but that this day, being Friday, was also the preparation day for the Jewish Sabbath of rest and worship.

185:2.8 (1990.3) Pilate, being keenly sensitive to the disrespectful manner of the approach of these Jews, was not willing to comply with their demands that Jesus be sentenced to death without a trial. When, therefore, he had waited a few moments for them to present their charges against the prisoner, he turned to them and said: “I will not sentence this man to death without a trial; neither will I consent to examine him until you have presented your charges against him in writing.”

185:2.9 (1990.4) When the high priest and the others heard Pilate say this, they signaled to the clerk of

대한 기소문을 **빌라도**에게 제시했다. 기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죄로 인해 그가 행악자라는 것과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1. 우리 민족을 나쁜 길로 이끌고 반역하도록 우리 민족을 선동했음.

“2.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음.

“3.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고 가르쳤음.”

예수께서는 이런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시도한 적이 없었고, 법에 저촉되게 한 적도 없었다. 이 죄목들이 처음 낭독됐을 때 그는 듣지도 못했지만,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는 집정관 관저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고, **예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죄목들을 다시 읽으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죄목을 들었을 때, 전에 있었던 **유대인** 법정에서 이 내용을 들은 일이 없었음을 잘 알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과 **요한 세베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고발인들에게 대답하라고 **빌라도**가 명했을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는 모든 진행이 불공정한 것에 너무 놀랐고, **예수**의 침묵과 놀라운 인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죄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비공식적으로 심문하려고 했다.

빌라도의 정신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그의 기질은 심히 동요됐는데, 피에 굶주린 고발인들 앞에 위엄 있게 서서, 무언(無言)의 경멸심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한 애정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예수**의 모습 때문이었다.

3.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빌라도는 경비병을 바깥 방에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 방으로 **예수**와 **요한 세베대**만 데려갔으며, 죄수를 앉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빌라도**는 그에 대한 첫째 기소항목: 즉 그가 민족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요 반역을 선동하는 자라는 내용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면서 **예수**께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했다: “저 사람, 또는 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자 **빌라도**가 세금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요한**에게 질문했으며, **요한**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증언했고, **예수**와 사도들이 **가이사**의 세와 성전 세를 둘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빌라도**는 **요한**에게 질문을 마친 후에, “내가

the court, who then handed to Pilate the written charges against Jesus. And these charges were:

185:2.10 (1990.5) “We find in the Sanhedrist tribunal that this man is an evildoer and a disturber of our nation in that he is guilty of:

185:2.11 (1990.6) “1. Perverting our nation and stirring up our people to rebellion.

185:2.12 (1990.7) “2. Forbidding the people to pay tribute to Caesar.

185:2.13 (1990.8) “3. Calling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and teaching the founding of a new kingdom.”

185:2.14 (1990.9) Jesus had not been regularly tried nor legally convicted on any of these charges. He did not even hear these charges when first stated, but Pilate had him brought from the praetorium, where he was in the keeping of the guards, and he insisted that these charges be repeated in Jesus’ hearing.

185:2.15 (1990.10) When Jesus heard these accusations, he well knew that he had not been heard on these matters before the Jewish court, and so did John Zebedee and his accusers, but he made no reply to their false charges. Even when Pilate bade him answer his accusers, he opened not his mouth. Pilate was so astonished at the unfairness of the whole proceeding and so impressed by Jesus’ silent and masterly bearing that he decided to take the prisoner inside the hall and examine him privately.

185:2.16 (1990.11) Pilate was confused in mind, fearful of the Jews in his heart, and mightily stirred in his spirit by the spectacle of Jesus’ standing there in majesty before his bloodthirsty accusers and gazing down on them, not in silent contempt, but with an expression of genuine pity and sorrowful affection.

3. THE PRIVATE EXAMINATION BY PILATE

185:3.1 (1991.1) Pilate took Jesus and John Zebedee into a private chamber, leaving the guards outside in the hall, and requesting the prisoner to sit down, he sat down by his side and asked several questions. Pilate began his talk with Jesus by assuring him that he did not believe the first count against him: that he was a perverter of the nation and an inciter to rebellion. Then he asked, “Did you ever teach that tribute should be refused Caesar?” Jesus, pointing to John, said, “Ask him or any other man who has heard my teaching.” Then Pilate questioned John about this matter of tribute, and John testified concerning his Master’s teaching and explained that Jesus and his apostles paid taxes both to Caesar and to the

너와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더 질문하려고 돌아서서 말했다: “자, 이제 너에 대한 셋째 기소 내용에 대해서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행정관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했다: “**빌라도**야, 네가 스스로 이것을 묻느냐, 아니면 나를 고발하는 저들에게서 이 질문을 취했느냐?” 그러자 총독이 조금 분개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종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끌고 와서 네게 사형을 언도하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들의 고소가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것이며,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몸소 알아보려는 것뿐이다. 내게 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새 왕국을 세우려고 도모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내가 모르겠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묶인 채로 네 앞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내 나라는 영적인 영역, 즉 신앙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제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결국 내가 왕이 아니냐?”고 **빌라도**가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내가 그런 왕이고, 내 나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이 모인 가족이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네게 선언한다.”

그러자 **빌라도**는 반쯤 비웃으면서, 그리고 반쯤은 진지하게 말했다: “진리? 진리가 무엇이나-- 누가 그것을 안단 말이나?”

빌라도는 **예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영적인 나라의 본성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죄수가 죽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신했다. 온화하고 지친, 그러나 당당하고 깨끗한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세속 권좌에 올라서려는 열망으로, 거칠고 위험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빌라도**마저 **예수**를 직접 대면해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족했다. **빌라도**는, “지혜 있는 자가 곧 왕이라”고 선언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교훈에 익숙했으므로, 자신을 왕이라고 한 **예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위험한 선동꾼이라기보다는, 무해한 공상가, 즉 순진한 광신자에 불과하다고 온전히 확신했다.

temple. When Pilate had questioned John, he said, “See that you tell no man that I talked with you.” And John never did reveal this matter.

185:3.2 (1991.2) Pilate then turned around to question Jesus further, saying: “And now about the third accusation against you,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Since there was a tone of possibly sincere inquiry in Pilate’s voice, Jesus smiled on the procurator and said: “Pilate, do you ask this for yourself, or do you take this question from these others, my accusers?” Whereupon, in a tone of partial indignation, the governor answered: “Am I a Jew? Your own people and the chief priests delivered you up and asked me to sentence you to death. I question the validity of their charges and am only trying to find out for myself what you have done. Tell me, have you said that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and have you sought to found a new kingdom?”

185:3.3 (1991.3) Then said Jesus to Pilate: “Do you not perceive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surely would my disciple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Jews. My presence here before you in these bonds is sufficient to show all men that my kingdom is a spiritual dominion, even the brotherhood of men who, through faith and by love, have become the sons of God. And this salvation is for the gentile as well as for the Jew.”

185:3.4 (1991.4) “Then you are a king after all?” said Pilate. And Jesus answered: “Yes, I am such a king, and my kingdom is the family of the faithful sons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this purpose was I born into this world, even that I should show my Father to all men and bear witness to the truth of God. And even now do I declare to you that every one who loves the truth hears my voice.”

185:3.5 (1991.5) Then said Pilate, half in ridicule and half in sincerity, “Truth, what is truth — who knows?”

185:3.6 (1991.6) Pilate was not able to fathom Jesus’ words, nor was he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is spiritual kingdom, but he was now certain that the prisoner had done nothing worthy of death. One look at Jesus, face to face, was enough to convince even Pilate that this gentle and weary, but majestic and upright, man was no wild and dangerous revolutionary who aspired to establish himself on the temporal throne of Israel. Pilate thought he understood something of what Jesus meant when he called himself a king, for he was familiar with the teachings of the Stoics, who declared that “the wise man is king.” Pilate was thoroughly convinced that, instead of being a dangerous seditionmonger, Jesus wa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harmless visionary, an innocent fanatic.

주님께 질문을 마친 후에,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심문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너희가 그에 대해 기소한 내용처럼 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매우 분노해서 동요했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격렬하게 고함쳤으며;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직접 빌라도 옆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민족을 선동했습니다. 해독을 끼치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오래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압력을 받았으므로; 그가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그들의 말을 듣자, 그때 유월절에 참여하여 성(城)에 머물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은 그 사건을 결정짓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다못해 생각할 시간이라도 벌여보려고 생각했다. 또한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때 자신과 헤롯 사이에 관할권 문제로 여러 차례 오해해서 생긴 증오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갈릴리인이다. 그를 헤롯에게로 끌고 가서, 심문을 마치거든, 그가 알아낸 것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헤롯에게 끌고 갔다.

4. 헤롯 앞에 선 예수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에 들릴 때, 헤롯 대왕이 소유했던 옛 마카비 궁전에 머물렀으며, 예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간 곳은, 전에 왕의 처소였던 그 궁전이었고, 고발인들과 점점 들어나는 대중이 그 뒤를 따라왔다.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에 대해 들었고, 그에 관하여 호기심이 많았다. 이 금요일 아침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메인은, 그가 바로, 공공건물 가운데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수년 전에 세포리에서 자기에게 항변하면서 서 있던 그 소년임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 헤롯은 자기가 기억하기로, 예수의 일이 주로 갈릴리에 집중했을 때 그에 대해 크게 염려한 적은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빌라도와 유대지방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헤롯은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면서도, 그를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가 행한 기적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그가 아무 이적이든지 행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영주(領主)는 그의 위엄 있는 모습과 평온하고 침착한 표정에 깜짝 놀랐다. 헤롯이 약 15분 동안 예

185:3.7 (1991.7) After questioning the Master, Pilate went back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accusers of Jesus and said: “I have examined this man, and I find no fault in him. I do not think he is guilty of the charges you have made against him; I think he ought to be set free.” And when the Jews heard this, they were moved with great anger, so much so that they wildly shouted that Jesus should die; and one of the Sanhedrists boldly stepped up by the side of Pilate, saying: “This man stirs up the people, beginning in Galilee and continuing throughout all Judea. He is a mischief-maker and an evildoer. You will long regret it if you let this wicked man go free.”

185:3.8 (1992.1) Pilate was hard pressed to know what to do with Jesus; therefore, when he heard them say that he began his work in Galilee, he thought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deciding the case, at least to gain time for thought, by sending Jesus to appear before Herod, who was then in the city attending the Passover. Pilate also thought that this gesture would help to antidote some of the bitter feeling which had existed for some time between himself and Herod, due to numerous misunderstandings over matters of jurisdiction.

185:3.9 (1992.2) Pilate, calling the guards, said: “This man is a Galilean. Take him forthwith to Herod, and when he has examined him, report his findings to me.” And they took Jesus to Herod.

4. JESUS BEFORE HEROD

185:4.1 (1992.3) When Herod Antipas stopped in Jerusalem, he dwelt in the old Maccabean palace of Herod the Great, and it was to this home of the former king that Jesus was now taken by the temple guards, and he was followed by his accusers and an increasing multitude. Herod had long heard of Jesus, and he was very curious about him. When the Son of Man stood before him, on this Friday morning, the wicked Idumean never for one moment recalled the lad of former years who had appeared before him in Sepphoris pleading for a just decision regarding the money due his father, who had been accidentally killed while at work on one of the public buildings. As far as Herod knew, he had never seen Jesus, although he had worried a great deal about him when his work had been centered in Galilee. Now that he was in custody of Pilate and the Judeans, Herod was desirous of seeing him, feeling secure against any trouble from him in the future. Herod had heard much about the miracles wrought by Jesus, and he really hoped to see him do some wonder.

185:4.2 (1992.4) When they brought Jesus before Herod, the tetrarch was startled by his stately appearance and the calm composure of his

수께 질문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헤롯**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감히 말하면서 조롱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여러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의 조롱에 반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고개를 돌려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아들**이 행했다고 주장하는 악행에 대해 **빌라도**가 들은 모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들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자기를 위해 기적을 베풀지도 않을 것을 알고, **헤롯**은 그를 몇 차례 희롱한 후에, 왕족이 입는 낡은 자주색 예복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은 **유대지방**에 소속된 **예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예수**를 **갈릴리**에서 몰아내게 했음을 기뻐했지만, 그를 죽이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결과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리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헤롯**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요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때도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난했던 노골적이고 성미 사나운 그 선지자에 비해, **예수**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봤으므로, 그는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5. 빌라도에게 돌아온 예수

경비병들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그는 재판석이 차려진 집정관 관저 앞 계단에 나와 있었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나쁜 길로 이끌었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내 앞에 데려 왔다. 나는 그를 심문했지만 그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고, 그 영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일만한 아무 이유도 없다. 너희가 그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나는 그를 놓아주기 전에 혼내줄 용의가 있다.”

유대인이 **예수**의 석방에 반대하여 소리 지르는 순간, 큰 인파가 **유월절** 축제에 대한 기념으로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위해, 집정관 저택으로 행진해 왔다. **유월절** 기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놓아주도록 민중이 요청할 때, **로마** 총독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 한동안 관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인파가 죄수 한 명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그 앞으로 왔고, **예수**께서는 최근에 대중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으므로, **예수**께서 지금 재판석 앞에 있는 죄인이니, **유월절**에 선정(善政)을 베푸는 표시로,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이 무리에게 제안함으로써,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빌라도**에게 떠올랐다.

countenance. For some fifteen minutes Herod asked Jesus questions, but the Master would not answer. Herod taunted and dared him to perform a miracle, but Jesus would not reply to his many inquiries or respond to his taunts.

185:4.3 (1992.5) Then Herod turn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and, giving ear to their accusations, heard all and more than Pilate had listened to regarding the alleged evil doings of the Son of Man. Finally, being convinced that Jesus would neither talk nor perform a wonder for him, Herod, after making fun of him for a time, arrayed him in an old purple royal robe and sent him back to Pilate. Herod knew he had no jurisdiction over Jesus in Judea. Though he was glad to believe that he was finally to be rid of Jesus in Galilee, he was thankful that it was Pilate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putting him to death. Herod never had fully recovered from the fear that cursed him as a result of killing John the Baptist. Herod had at certain times even feared that Jesus was John risen from the dead. Now he was relieved of that fear since he observed that Jesus was a very different sort of person from the outspoken and fiery prophet who dared to expose and denounce his private life.

5. JESUS RETURNS TO PILATE

185:5.1 (1993.1) When the guards had brought Jesus back to Pilate, he went out on the front steps of the praetorium, where his judgment seat had been placed, and calling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Sanhedrists, said to them: “You brought this man before me with charges that he perverts the people, forbids the payment of taxes, and claims to be king of the Jews. I have examined him and fail to find him guilty of these charges. In fact, I find no fault in him. Then I sent him to Herod, and the tetrarch must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since he has sent him back to us. Certainly,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by this man. If you still think he needs to be disciplined, I am willing to chastise him before I release him.”

185:5.2 (1993.2) Just as the Jews were about to engage in shouting their protests against the release of Jesus, a vast crowd came marching up to the praetorium for the purpose of asking Pilate for the release of a prisoner in honor of the Passover feast. For some time it had been the custom of the Roman governors to allow the populace to choose some imprisoned or condemned man for pardon at the time of the Passover. And now that this crowd had come before him to ask for the release of a prisoner, and since Jesus had so recently been in great favor with the multitudes, it occurred to Pilate that he might possibly extricate himself from his predicament by proposing to this group that, since

인파가 그 건물 계단위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어느 제사장の子 이었고, 유명한 정치 선동가요 흉악한 강도였으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최근에 체포된 자였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형 당하게 돼있었다.

빌라도가 일어서서, 제사장들이 **예수**를 데려왔고, 어떤 죄목으로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죽일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파를 향해 설명했다.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죄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살인자인 이 **바라바**냐, 아니면 이 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바라바, 바라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는 아우성에 재빨리 가담하는 한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중이 **예수**를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제사장과 관리들의 감시를 받으며, **빌라도** 앞에서 목숨이 달린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군중은 존경하지 않았다. 돈 바꾸는 자와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낼 때에는 민중의 눈에 **예수**께서 영웅으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적의 수중에서 반항도 하지 않고 목숨이 달린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났다. 그는 그들의 살의와 증오심을 봤고, 그들의 선입견과 질투심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고작해야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죄를 지은 이 사람보다, 오히려 살인자의 목숨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유대인**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 굴복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 권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면서, 자기네를 이방인의 속박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온화한 태도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선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하려는 듯한 암시에, 그들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분개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의 존재에서 신성시하고 영예롭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들었으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목이 터져라 힘차게 외쳤다.

Jesus was now a prisoner before his judgment seat, he release to them this man of Galilee as the token of Passover good will.

185:5.3 (1993.3) As the crowd surged up on the steps of the building, Pilate heard them calling out the name of one Barabbas. Barabbas was a noted political agitator and murderous robber, the son of a priest, who had recently been apprehended in the act of robbery and murder on the Jericho road. This man was under sentence to die as soon as the Passover festivities were over.

185:5.4 (1993.4) Pilate stood up and explained to the crowd that Jesus had been brought to him by the chief priests, who sought to have him put to death on certain charges, and that he did not think the man was worthy of death. Said Pilate: “Which, therefore, would you prefer that I release to you, this Barabbas, the murderer, or this Jesus of Galilee?” And when Pilate had thus spok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anhedrin councilors all shout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Barabbas, Barabbas!” And when the people saw that the chief priests were minded to have Jesus put to death, they quickly joined in the clamor for his life while they loudly shouted for the release of Barabbas.

185:5.5 (1993.5) A few days before this the multitude had stood in awe of Jesus, but the mob did not look up to one who, having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now found himself in the custody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and on trial before Pilate for his life. Jesus could be a hero in the eyes of the populace when he was driving the money-changers and the traders out of the temple, but not when he was a nonresisting prisoner in the hands of his enemies and on trial for his life.

185:5.6 (1993.6) Pilate was angered at the sight of the chief priests clamoring for the pardon of a notorious murderer while they shouted for the blood of Jesus. He saw their malice and hatred and perceived their prejudice and envy. Therefore he said to them: “How could you choose the life of a murderer in preference to this man’s whose worst crime is that he figuratively calls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But this was not a wise statement for Pilate to make. The Jews were a proud people, now subject to the Roman political yoke but hoping for the coming of a Messiah who would deliver them from gentile bondage with a great show of power and glory. They resented, more than Pilate could know, the intimation that this meek-mannered teacher of strange doctrines, now under arrest and charged with crimes worthy of death,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king of the Jews.” They looked upon such a remark as an insult to everything which they held sacred and honorable in their national existence, and therefore did they all let loose their mighty shouts for Barabbas’s release and Jesus’ death.

고소 내용에 대해 **예수**가 무죄임을 **빌라도**는 알았으며,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난 이 **유대인**의 도전 받게 되기를 두려워했으며, 망설이면서 자기 직분을 수행치 못하고 있을 때, 심부름꾼이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밀봉한 편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넸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방금 전달받은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빌라도**가 개봉해서 읽은 편지에는: “**예수**라 불리는 무죄하고 의로운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 밤 꿈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클라우디아**가 보낸 이 편지로 인해 **빌라도**가 심히 당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유대인** 관리들이 자유롭게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을 제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마침내 **빌라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힘쓰기로 하고, 사면을 요청하는 인파와 **유대인** 관리들이 섞여있는 무리에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뒤섞여 있는 대중의 한결같은 요구는, 불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재판관인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했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려는 말을 들은 그들은 오직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 죄수를 사면하는 것에 관해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면서 말했다: “너희에게 한 번 더 묻겠는데, 너희 **유월절** 때에 내가 이 죄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줘야 하겠느냐?” 인파는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라고 소리쳤다.

그 때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준다면, **예수**를 어떻게 하라?” 대중은 다시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직접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군중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위협 당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적어도 한 번 더 인파를 달래서 **예수**를 구해보기로 결심했다.

185:5.7 (1994.1) Pilate knew Jesus was innocent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him, and had he been a just and courageous judge, he would have acquitted him and turned him loose. But he was afraid to defy these angry Jews, and while he hesitated to do his duty, a messenger came up and presented him with a sealed message from his wife, Claudia.

185:5.8 (1994.1) Pilate indicated to those assembled before him that he wished to read the communication which he had just received before he proceeded further with the matter before him. When Pilate opened this letter from his wife, he read: “I pray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innocent and just man whom they call Jesus. I have suffered many things in a dream this night because of him.” This note from Claudia not only greatly upset Pilate and thereby delayed the adjudication of this matter, but it unfortunately also provided considerable time in which the Jewish rulers freely circulated among the crowd and urged the people to call for the release of Barabbas and to clamor for the crucifixion of Jesus.

185:5.9 (1994.2) Finally, Pilate addressed himself once more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hich confronted him, by asking the mixed assembly of Jewish rulers and the pardon-seeking crowd, “What shall I do with him who is called the king of the Jews?” And they all shouted with one accord, “Crucify him! Crucify him!” The unanimity of this demand from the mixed multitude startled and alarmed Pilate, the unjust and fear-ridden judge.

185:5.10 (1994.3) Then once more Pilate said: “Why would you crucify this man? What evil has he done? Who will come forward to testify against him?” But when they heard Pilate speak in defense of Jesus, they only cried out all the more, “Crucify him! Crucify him!”

185:5.11 (1994.4) Then again Pilate appealed to them regarding the release of the Passover prisoner, saying: “Once more I ask you, which of these prisoners shall I release to you at this, your Passover time?” And again the crowd shouted, “Give us Barabbas!”

185:5.12 (1994.5) Then said Pilate: “If I release the murderer, Barabbas, what shall I do with Jesus?” And once more the multitude shouted in unison, “Crucify him! Crucify him!”

185:5.13 (1994.6) Pilate was terrorized by the insistent clamor of the mob, acting under the direct leadership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councilors of the Sanhedrin; nevertheless, he decided upon at least one more attempt to appease the crowd and save Jesus.

6.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금요일인 이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는, 오직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만 참여했다. 그가 지난밤에 체포되어 이른 아침에 재판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발각돼서 예수의 교훈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숨어 있었다. 이때 주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대중은, 오직 그를 공공연히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경솔한 민중뿐이었다.

빌라도는 한 번만 더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했다. 예수의 피를 보려고 외치는 오도(誤導)된 폭도들의 외침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면서, 유대인 경비병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에게만 채찍질 하도록 돼있었으므로, 이것은 원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처사였다. 경비병들은 예수께 이런 고통을 가하기 위해 관저(官邸) 안마당으로 끌고 갔다. 적들은 이 채찍질을 보지 못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지켜봤고, 그들이 이 지독한 학대를 끝내기 전에, 그는 채찍질하는 자들을 멈추게 했고, 예수를 끌고 오도록 명령했다. 채찍질하는 자들은 그를 나무에 묶고, 매듭진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그에게 자주색 예복을 다시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이마에 씌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손에, 왕을 상징하는 홀(笏) 대신, 마른 갈대를 쥐어준 후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그를 끌고 가기 전에, 갈대를 손에서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에 빌라도는 상처 나고 피 흘리는 이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잡다한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보라! 너희에게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며, 그를 채찍으로 때렸으니, 풀어주겠다.”

거기에 서 있는 예수께서는 왕족의 낡은 자주색 예복을 입었고, 그의 온화한 이마에는 가시관이 박혀 있었다.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몸은 고통과 비탄에 젖어서 구부정했다. 그러나 종교적 선입견에 노예가 되고 격렬한 감정적 증오심의 희생자가 된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는, 어떤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 장면은, 광대한 우주 영역들 도처에 강렬한 전율이 일어나게 했지만, 예수의 파멸을 완수시키기로 이미 결심한 그들의 정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님의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 처음 받았던 충격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직 더 큰 소리로 더 오랫동안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6. PILATE'S LAST APPEAL

185:6.1 (1994.7) In all that is transpiring early this Friday morning before Pilate, only the enemies of Jesus are participating. His many friends either do not yet know of his night arrest and early morning trial or are in hiding lest they also be apprehended and adjudged worthy of death because they believe Jesus' teachings. In the multitude which now clamors for the Master's death are to be found only his sworn enemies and the easily led and unthinking populace.

185:6.2 (1995.1) Pilate would make one last appeal to their pity. Being afraid to defy the clamor of this misled mob who cried for the blood of Jesus, he ordered the Jewish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to take Jesus and scourge him. This was in itself an unjust and illegal procedure since the Roman law provided that only those condemned to die by crucifixion should be thus subjected to scourging. The guards took Jesus into the open courtyard of the praetorium for this ordeal. Though his enemies did not witness this scourging, Pilate did, and before they had finished this wicked abuse, he directed the scourgers to desist and indicated that Jesus should be brought to him. Before the scourgers laid their knotted whips upon Jesus as he was bound to the whipping post, they again put upon him the purple robe, and plaiting a crown of thorns, they placed it upon his brow. And when they had put a reed in his hand as a mock scepter, they knelt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pit upon him and struck him in the face with their hands. And one of them, before they returned him to Pilate, took the reed from his hand and struck him upon the head.

185:6.3 (1995.2) Then Pilate led forth this bleeding and lacerated prisoner and, presenting him before the mixed multitude, said: "Behold the man! Again I declare to you that I find no crime in him, and having scourged him, I would release him."

185:6.4 (1995.3) There stood Jesus of Nazareth, clothed in an old purple royal robe with a crown of thorns piercing his kindly brow. His face was bloodstained and his form bowed down with suffering and grief. But nothing can appeal to the unfeeling hearts of those who are victims of intense emotional hatred and slaves to religious prejudice. This sight sent a mighty shudder through the realms of a vast universe, but it did not touch the hearts of those who had set their minds to effect the destruction of Jesus.

185:6.5 (1995.4) When they had recovered from the first shock of seeing the Master's plight, they only shouted the louder and the longer,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이제 **빌라도**는, 그들에게 동정심이 있다고 가정하여 호소했던 것이 쓸데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감지했지만, 그가 사형당할 만큼 무슨 일을 했느냐? 누가 그의 죄를 증명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와 **빌라도**에게로 올라가면서, 성내며 주장했다: “우리에게는 신성시되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있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 때문만이 아니라, 신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리스** 신화와 아내의 편지가 생각났으므로 더 두려워했으며, 이제는 **예수**께서 신성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벌 떨었다. 인파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 하면서, 그는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그의 팔을 붙들고 다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혼돈에 빠졌고,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당황했으며, 군중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초조했다.

7.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빌라도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정말로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나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그를 다시 체찍질하도록 허락할 만큼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약하며 우유부단한 재판관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질문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느냐? 너를 놓아줄 수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직 내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나는 나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고, 오직 저 높은 곳에서만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네 죄가 크지 않다. 나를 배반한 자와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와 나눈 이 마지막 대화가 **빌라도**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도덕적으로 겁쟁이요, 재판에서 마음이 나약한 이 사람은, 이제 미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끔찍이 무서워하는 이중 압박 아래서 괴로워했다.

빌라도가 다시 인파 앞에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오직 종교적 죄를 범했다고 확신한다.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가 너희의 전통을 위반했다고 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죽이는 데 내가 찬성하리라고

185:6.6 (1995.5) And now did Pilate comprehend that it was futile to appeal to their supposed feelings of pity. He stepped forward and said: “I perceive that you are determined this man shall die, but what has he done to deserve death? Who will declare his crime?”

185:6.7 (1995.6) Then the high priest himself stepped forward and, going up to Pilate, angrily declared: “We have a sacred law, and by that law this man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out to be the Son of God.” When Pilate heard this, he was all the more afraid, not only of the Jews, but recalling his wife’s note and the Greek mythology of the gods coming down on earth, he now trembled at the thought of Jesus possibly being a divine personage. He waved to the crowd to hold its peace while he took Jesus by the arm and again led him inside the building that he might further examine him. Pilate was now confused by fear, bewildered by superstition, and harassed by the stubborn attitude of the mob.

7. PILATE’S LAST INTERVIEW

185:7.1 (1995.7) As Pilate, trembling with fearful emotion, sat down by the side of Jesus, he inquired: “Where do you come from? Really, who are you? What is this they say, that you are the Son of God?”

185:7.2 (1996.1) But Jesus could hardly answer such questions when asked by a man-fearing, weak, and vacillating judge who was so unjust as to subject him to flogging even when he had declared him innocent of all crime, and before he had been duly sentenced to die. Jesus looked Pilate straight in the face, but he did not answer him. Then said Pilate: “Do you refuse to speak to me? Do you not realize that I still have power to release you or to crucify you?” Then said Jesus: “You could have no power over me except it were permitted from above. You could exercise no authority over the Son of Man unless the Father in heaven allowed it. But you are not so guilty since you are ignorant of the gospel. He who betrayed me and he who delivered me to you, they have the greater sin.”

185:7.3 (1996.2) This last talk with Jesus thoroughly frightened Pilate. This moral coward and judicial weakling now labored under the double weight of the superstitious fear of Jesus and mortal dread of the Jewish leaders.

185:7.4 (1996.3) Again Pilate appeared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certain this man is only a religious offender. You should take him and judge him by your law. Why should you expect that I would consent to his death because he has

기대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막 풀어주려고 했을 때, 겁 먹고 있는 **로마** 재판관 앞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서, **빌라도**의 얼굴 앞에 복수하려는 듯이 손가락을 흔들면서, 모든 대중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화가 난 어투로 말했다: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며, 나는 황제를 만나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요.” 이런 공공연한 위협을 **빌라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개인 운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른 모든 고려사항은 빛을 잃게 됐고, 비겁한 총독은 **예수**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오도록 명했다. **주님**이 자기 앞에 서자, 그는 그를 가리키고 조롱하면서 말했다: “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자 **유대인**이 대답했다: “그를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심히 빈정대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겠느냐?” 그리고 **유대인**은 대답했다: “그렇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는 한, **예수**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8. 빌라도의 비참한 굴복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화 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고소장 없이 체포됐고; 증거 없이 고발당했으며; 증인 없이 판결 받았고; 판결 없이 벌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한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은 그런 왕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경솔한 민중조차 충격을 받았지만, 군중이 감히 **주님**의 주장을 지지한다 해도, 이제 **예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빌라도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위협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 최근에 **가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므로, 다시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명하자 군중은 환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과 대야를 가져오도록 명했고, 대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너희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라. 군인들이 그를 끌어낼 것이다.” 그러자 군중은 환호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대답했다.

clashed with your traditions?”

185:7.5 (1996.4) Pilate was just about ready to release Jesus when Caiaphas, the high priest, approached the cowardly Roman judge and, shaking an avenging finger in Pilate's face, said with angry words which the entire multitude could hear: “If you release this man, you are not Caesar's friend, and I will see that the emperor knows all.” This public threat was too much for Pilate. Fear for his personal fortunes now eclipsed all other considerations, and the cowardly governor ordered Jesus brought out before the judgment seat. As the Master stood there before them, he pointed to him and tauntingly said, “Behold your king.” And the Jews answered, “Away with him. Crucify him!” And then Pilate said, with much irony and sarcasm, “Shall I crucify your king?” And the Jews answered, “Yes, crucify him! We have no king but Caesar.” And then did Pilate realize that there was no hope of saving Jesus since he was unwilling to defy the Jews.

8. PILATE'S TRAGIC SURRENDER

185:8.1 (1996.5) Here stood the Son of God incarnate as the Son of Man. He was arrested without indictment; accused without evidence; adjudged without witnesses; punished without a verdict; and now was soon to be condemned to die by an unjust judge who confessed that he could find no fault in him. If Pilate had thought to appeal to their patriotism by referring to Jesus as the “king of the Jews,” he utterly failed. The Jews were not expecting any such a king. The declaration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We have no king but Caesar,” was a shock even to the unthinking populace, but it was too late now to save Jesus even had the mob dared to espouse the Master's cause.

185:8.2 (1996.6) Pilate was afraid of a tumult or a riot. He dared not risk having such a disturbance during Passover time in Jerusalem. He had recently received a reprimand from Caesar, and he would not risk another. The mob cheered when he ordered the release of Barabbas. Then he ordered a basin and some water, and there before the multitude he washed his hands, saying: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man. You are determined that he shall die, but I have found no guilt in him. See you to it. The soldiers will lead him forth.” And then the mob cheered and repli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제186편.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

⇨ 185

유랜시아 책

187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6편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

섹션

소개

1. 가롯 유다의 최후
2. 주님의 태도
3. 믿음직한 다윗 세베대
4. 십자가에 못박기 위한 준비
5.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PAPER 186

JUST BEFORE THE CRUCIFIX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nd of Judas Iscariot
2. The Master's Attitude
3. The Dependable David Zebedee
4. Preparation for the Crucifixion
5. Jesus' Death in Relation to the Passover

소개

예수와 고발인들이 **헤롯**을 만나려고 출발할 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요한**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내 어머니를 모셔 오거라.” 이런 **주님**의 요청을 들은 **요한**은, 적들 가운데 그를 혼자 남겨두기 싫었지만, **베다니**를 향해 서둘러 떠났는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려낸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의 가족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심부름꾼들이 **예수**의 재판 진행 소식을 여러 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예수**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요한**이 **베다니**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야, **예수**의 가족이 거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한밤중에 체포된 후 일어난 모든 일을 **요한 세베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만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 세베대**와 함께 즉시 길을 떠났다. **마리아**와 **요한**이 성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병사들과 함께 이미 **골고다**에 도착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과 함께 출발했을 때, **예수**의 여동생 **룻**은 나머지 가족과 함께 뒤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

INTRODUCTION

186:0.1 (1997.1) AS JESUS and his accusers started off to see Herod, the Master turned to the Apostle John and said: “John, you can do no more for me. Go to my mother and bring her to see me ere I die.” When John heard his Master's request, although reluctant to leave him alone among his enemies, he hastened off to Bethany, where the entire family of Jesus was assembled in waiting at the home of Martha and Mary, the sisters of Lazarus whom Jesus raised from the dead.

186:0.2 (1997.2) Several times during the morning, messengers had brought news to Martha and Mary concerning the progress of Jesus' trial. But the family of Jesus did not reach Bethany until just a few minutes before John arrived bearing the request of Jesus to see his mother before he was put to death. After John Zebedee had told them all that had happened since the midnight arrest of Jesus, Mary his mother went at once in the company of John to see her eldest son. By the time Mary and John reached the city, Jesus, accompanied by the Roman soldiers who were to crucify him, had already arrived at Golgotha.

186:0.3 (1997.3) When Mary the mother of Jesus started out with John to go to her son, his sister Ruth refused to remain behind with the rest of the family. Since she was determined to accompany

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오빠 **유다**가 **룻**과 같이 갔다. **주님**의 나머지 가족은 **야고보**의 지시 하에 **베다니**에 남았으며, 만형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윗 세베대**의 심부름꾼들이 거의 매 시간 와서 보고했다.

1. 가롯 유다의 최후

같은 날인 금요일 아침 여덟 시 반쯤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에 대한 공판이 끝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졌다. **로마인**이 **예수**를 넘겨받자마자, **유대인** 경비병 지휘관은 부하들과 함께 행진해서 성전 본부로 돌아갔다. 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 동역자들은 경비병들 바로 뒤에 쫓아갔고, 성전에서 그 회원들이 항상 모이던, 다듬어진 돌로 지은 방으로 직행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을 만났다. **가야바**가 **예수**에 대한 재판과 유죄 판결에 관해 **산헤드린**에 보고하고 있을 때, **주님**을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유다**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유대인**들은 모두 **유다**를 아주 싫어했으며; 오직 심히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배반자를 바라봤다. **예수**께서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는 동안, 그리고 **빌라도** 앞에 계신 동안 내내, **유다**는 자신의 배신행위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판 행동의 대가{代價}로 받게 될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대인** 권세자들의 냉담함과 찔찔맞은 태도가 싫었으나; 그럼에도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 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는 **산헤드린** 전체 모임이 있기 전에 청함을 받고 참석하게 됐으며, 자기 민족을 도왔다고 우쭐해졌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여, 그에 걸맞는 상을 거기서 그들이 수여하면서 자신을 칭송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이 그에게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방 밖으로 불러내고, “**유다**여, **예수**를 판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보상금이오”라고 말했을 때, 이 이기적인 배신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야바**의 하인은 **유다**에게, --우수하고 건강한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인-- 은전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넸다.

유다는 대경실색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되돌아 달려갔으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산헤드린**에 호소하려 했으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유다**는, 친구들과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나서 은전 30개로 보상하려는, 이 **유대인** 관리들의 처

her mother, her brother Jude went with her. The rest of the Master's family remained in Bethany under the direction of James, and almost every hour the messengers of David Zebedee brought them reports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at terrible business of putting to death their eldest brother, Jesus of Nazareth.

1. THE END OF JUDAS ISCARIOT

186:1.1 (1997.4) It was about half past eight o'clock this Friday morning when the hearing of Jesus before Pilate was ended and the Master was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Roman soldiers who were to crucify him. As soon as the Romans took possession of Jesus, the captain of the Jewish guards marched with his men back to their temple headquarters. The chief priest and his Sanhedrist associates followed close behind the guards, going directly to their usual meeting place in the hall of hewn stone in the temple. Here they found many other members of the Sanhedrin waiting to learn what had been done with Jesus. As Caiaphas was engaged in making his report to the Sanhedrin regarding the trial and condemnation of Jesus, Judas appeared before them to claim his reward for the part he had played in his Master's arrest and sentence of death.

186:1.2 (1997.5) All of these Jews loathed Judas; they looked upon the betrayer with only feelings of utter contempt. Throughout the trial of Jesus before Caiaphas and during his appearance before Pilate, Judas was pricked in his conscience about his traitorous conduct. And he was also beginning to become somewhat disillusioned regarding the reward he was to receive as payment for his services as Jesus' betrayer. He did not like the coolness and aloofness of the Jewish authorities; nevertheless, he expected to be liberally rewarded for his cowardly conduct. He anticipated being called before the full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there hearing himself eulogized while they conferred upon him suitable honors in token of the great service which he flattered himself he had rendered his nation. Imagine, therefore, the great surprise of this egotistic traitor when a servant of the high priest, tapping him on the shoulder, called him just outside the hall and said: "Judas, I have been appointed to pay you for the betrayal of Jesus. Here is your reward." And thus speaking, the servant of Caiaphas handed Judas a bag containing thirty pieces of silver — the current price of a good, healthy slave.

186:1.3 (1998.1) Judas was stunned, dumfounded. He rushed back to enter the hall but was debarred by the doorkeeper. He wanted to appeal to the Sanhedrin, but they would not admit him. Judas could not believe that these rulers of the Jews would allow him to betray his friends and his

사를 믿을 수 없었다. 굴욕과 환멸을 느꼈으며 완전히 낙담했다. 마치 낮이 빠진 듯 성전에서 걸어 나갔다. 그는 무의식중에 돈주머니를 자기 전대 {纏帶}에 넣었으며, 그 전대는 사도들의 자금을 간직하는 주머니를 오랫동안 넣고 다닌 것이었다. 인파가 십자가형을 지켜보기 위해 떠난 후에, 그는 성을 두루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다.

유다는 **예수**를 못박은 십자가를 그들이 들어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으며, 이것을 본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자기를 들어가게 하라고 옥박지르다가, 마침내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는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됐다. 배반자는 숨이 턱까지 찼고 거의 미친 상태가 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무례하게 대우했습니다. 내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곧 한 사람의 노예에 대한 값을-- 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며; 여기 여러분의 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유대인** 관리들이 그를 비웃었다. **유다**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이 앉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손짓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이미 **로마인**들이 네 **주님**을 사형시켰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네가 당할 일이니--당장 꺼져버려라!”

산헤드린 회의장을 떠나면서, **유다**는 은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전대에서 꺼내 성전 마루 위에 뿌려버렸다. 성전을 떠난 배반자는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다. **유다**는 이제 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악행의 매력, 매혹, 그리고 도취된 상태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 행악자는 홀로 서 있었으며, 자신의 혼에 대해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는 심판에 직면했다. 죄를 범할 때에는 매혹을 느끼게 하고 모험심을 키워줬지만, 이제는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의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의 대사였던 그는, 이제 버림받고 고독한 상태로 **예루살렘** 거리를 배회했다. 그의 절망감은 극도에 달했으며 거의 절대적이었다. 성을 빠져나가서 성벽 밖에 있는 길을 지나다가, **히놈**의 골짜기의 가파른 절벽에 다다르자, 낭떠러지 바위로 기어 올라갔으며, 외투 허리띠를 풀어서 한 쪽 끝은 작은 나뭇가지에 매고, 다른 쪽 끝을 자기 목에 감은 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묶었던 매듭이 풀어졌고, 배반자의 몸은 아래에 있는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다.

Master and then offer him as a reward thirty pieces of silver. He was humiliated, disillusioned, and utterly crushed. He walked away from the temple, as it were, in a trance. He automatically dropped the money bag in his deep pocket, that same pocket wherein he had so long carried the bag containing the apostolic funds. And he wandered out through the city after the crowds who were on their way to witness the crucifixions.

186:1.4 (1998.2) From a distance Judas saw them raise the cross piece with Jesus nailed thereon, and upon sight of this he rushed back to the temple and, forcing his way past the doorkeeper, found himself standing in the presence of the Sanhedrin, which was still in session. The betrayer was well-nigh breathless and highly distraught, but he managed to stammer out these words: “I have sinned in that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You have insulted me. You have offered me as a reward for my service, money — the price of a slave. I repent that I have done this; here is your money. I want to escape the guilt of this deed.”

186:1.5 (1998.3) When the rulers of the Jews heard Judas, they scoffed at him. One of them sitting near where Judas stood, motioned that he should leave the hall and said: “Your Master has already been put to death by the Romans, and as for your guilt, what is that to us? See you to that — and begone!”

186:1.6 (1998.4) As Judas left the Sanhedrin chamber, he removed the thirty pieces of silver from the bag and threw them broadcast over the temple floor. When the betrayer left the temple, he was almost beside himself. Judas was now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true nature of sin. All the glamor, fascination, and intoxication of wrongdoing had vanished. Now the evildoer stood alone and face to face with the judgment verdict of his disillusioned and disappointed soul. Sin was bewitching and adventurous in the committing, but now must the harvest of the naked and unromantic facts be faced.

186:1.7 (1998.5) This onetime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now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forsaken and alone. His despair was desperate and well-nigh absolute. On he journeyed through the city and outside the walls, on down into the terrible solitude of the valley of Hinnom, where he climbed up the steep rocks and, taking the girdle of his cloak, fastened one end to a small tree, tied the other about his neck, and cast himself over the precipice. Ere he was dead, the knot which his nervous hands had tied gave way, and the betrayer's body was dashed to pieces as it fell on the jagged rocks below.

2. 주님의 태도

자신이 체포되자, **예수**께서는 필사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인지 완전히 알았고,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예수**께서는 거짓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답변하기를 거절했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대답을 이끌어낸 한 가지 예외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과 본질에 관계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호기심 많고 사악한 **헤롯** 앞에서는 답변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빌라도** 또는 다른 진지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만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이때 그의 행동은, 신성한 본성에서 나오는 장엄한 침묵과, 근엄한 위엄에 동반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끈기 있는 순종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정치적 기소 내용에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곧 총독의 사법권에 속한다고 그가 인식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 **빌라도**와 가까이 토론할 의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필사 피조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인간사{人間事}의 과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달았으므로, 사회적으로 근시안이고 영적으로 눈먼 동료 필사자들이 꾸민 음모에 설득력 있는 화술{話術}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순전히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사용하기를 거절했다. **예수**께서 비록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전체 인간 생애는, 자신이 창조하고 끝없이 유지하는 온 우주를 감화시키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엄청난 광경이었다.

근시안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보기 흉하게 외쳐대는 동안, 그는 거기 서서 한 민족--곧 그의 이 세상 아버지의 민족--의 죽어있는 모습을 장엄한 침묵 속에서 바라봤다.

예수께서는, 근거 없이 계속 쏟아지는 모욕에 직면해서,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침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 성품을 습득했다. 그는 헐박당할 수 없었다. **안나스**의 하인에게 처음 폭행당했을 때, 그에게 대적하여 정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부르라고 하는, 타당성 있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빌라도 앞에서 소위 재판이라는 것을 받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천상의 무리는 그

2. THE MASTER'S ATTITUDE

186:2.1 (1999.1) When Jesus was arrested, he knew that his work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was finished. He fully understood the sort of death he would die, and he was little concerned with the details of his so-called trials.

186:2.2 (1999.2) Before the Sanhedrist court Jesus declined to make replies to the testimony of perjured witnesses. There was but one question which would always elicit an answer, whether asked by friend or foe, and that was the one concerning the nature and divinity of his mission on earth. When asked if he were the Son of God, he unfailingly made reply. He steadfastly refused to speak when in the presence of the curious and wicked Herod. Before Pilate he spoke only when he thought that Pilate or some other sincere person might be helped to a better knowledge of the truth by what he said. Jesus had taught his apostles the uselessness of casting their pearls before swine, and he now dared to practice what he had taught. His conduct at this time exemplified the patient submission of the human nature coupled with the majestic silence and solemn dignity of the divine nature. He was altogether willing to discuss with Pilate any question related to the political charges brought against him — any question which he recognized as belonging to the governor's jurisdiction.

186:2.3 (1999.3) Jesus was convinced that it was the will of the Father that he submit himself to the natural and ordinary course of human events just as every other mortal creature must, and therefore he refused to employ even his purely human powers of persuasive eloquence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machinations of his socially nearsighted and spiritually blinded fellow mortals. Although Jesus lived and died on Urantia, his whole human career, from first to last, was a spectacle designed to influence and instruct the entire universe of his creation and unceasing upholding.

186:2.4 (1999.4) These shortsighted Jews clamored unseemingly for the Master's death while he stood there in awful silence looking upon the death scene of a nation — his earthly father's own people.

186:2.5 (1999.5) Jesus had acquired that type of human character which could preserve its composure and assert its dignity in the face of continued and gratuitous insult. He could not be intimidated. When first assaulted by the servant of Annas, he had only suggested the propriety of calling witnesses who might duly testify against him.

186:2.6 (1999.6) From first to last, in his so-called trial before Pilate, the onlooking celestial hosts could

장면에 대해, “예수 앞에서 재판 받는 **빌라도**”라는 표현으로 우주에 널리 알릴 수밖에 없었다.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예수께서는 서슴없이 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그렇게 해서,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죄를 씌우려 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마련해 줬던 그 증언을, 자신이 직접 했다.

선의{善意}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를 놓아주려는 마음은 별로 없는 **빌라도**의 노력에, **주님**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빌라도**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어두운 정신에 빛을 비추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는, **유대인**에게 호소하여 그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로마** 총독의 모든 시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비참한 시련을 겪는 동안 내내, 그는 온전한 위엄과 순수한 품위로 참아냈다. 장차 그를 죽이게 될 자들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결코 불성실한 태도로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꾸밈없는 설명을 덧붙이고 그 칭호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비록 영적 감각에서였더라도, 그들에게 민족의 진정한 지도력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인간적 성품을 모든 필사자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피조물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진심으로 선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활동적인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이 피조물의 생애 속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든 우주에 보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말씀했다.

무지한 필사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친 병사들과 경솔한 하인들의 희롱, 구타, 및 학대 앞에서 보여준 그의 인내심과 침착성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그들이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서, 조롱하면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나를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 맞춰 보라”고 소리쳤을 때에도 그는 화내지 않았다.

빌라도는, **예수**를 체적으로 때린 후에, 대중 앞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 때,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참되게 말했다.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음침하고 타락한 필사자 신하들로부터 조롱받고 구타당하는 굴욕스런 모습을, 바로 그 순간에 우주가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로마** 총독은 정말로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할 때,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를 보라!”는 음성이, 온 **네바돈**에 울려 퍼졌다. 온 우주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가 그날 이후로 언제나 그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왔고, 온갖 우주의 최상급 통치자이신 **하보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지방우주의 필사 피조물의 이상{理想}을 만족시켰다고 인정하셨다. 비길 데 없는 자신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기에

not refrain from broadcasting to the universe the depiction of the scene of “Pilate on trial before Jesus.”

186:2.7 (1999.7) When before Caiaphas, and when all the perjured testimony had broken down, Jesus did not hesitate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chief priest, thereby providing in his own testimony that which they desired as a basis for convicting him of blasphemy.

186:2.8 (1999.8) The Master never displayed the least interest in Pilate's well-meant but halfhearted efforts to effect his release. He really pitied Pilate and sincerely endeavored to enlighten his darkened mind. He was wholly passive to all the Roman governor's appeals to the Jews to withdraw their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Throughout the whole sorrowful ordeal he bore himself with simple dignity and unostentatious majesty. He would not so much as cast reflections of insincerity upon his would-be murderers when they asked if he were “king of the Jews.” With but little qualifying explanation he accepted the designation, knowing that, while they had chosen to reject him, he would be the last to afford them real national leadership, even in a spiritual sense.

186:2.9 (2000.1) Jesus said little during these trials, but he said enough to show all mortals the kind of human character man can perfect in partnership with God and to reveal to all the universe the manner in which God can become manifest in the life of the creature when such a creature truly choose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thus becoming an active son of the living God.

186:2.10 (2000.2) His love for ignorant mortals is fully disclosed by his patience and great self-possession in the face of the jeers, blows, and buffetings of the coarse soldiers and the unthinking servants. He was not even angry when they blindfolded him and, derisively striking him in the face, exclaimed: “Prophecy to us who it was that struck you.”

186:2.11 (2000.3) Pilate spoke more truly than he knew when, after Jesus had been scourged, he presented him before the multitude, exclaiming, “Behold the man!” Indeed, the fear-ridden Roman governor little dreamed that at just that moment the universe stood at attention, gazing upon this unique scene of its beloved Sovereign thus subjected in humiliation to the taunts and blows of his darkened and degraded mortal subjects. And as Pilate spoke, there echoed throughout all Nebadon, “Behold God and man!” Throughout a universe, untold millions have ever since that day continued to behold that man, while the God of Havona, the supreme ru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ccepts the man of Nazareth as the satisfaction of the ideal of the mortal creatures of

실패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이제, 필사자 생애의 마지막 사건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에서, 사람에 대한 새롭고 감동적인 계시를 **하나님께** 이뤄 드렸다.

3. 믿음직한 다윗 세베대

빌라도 앞에서 선고가 내려지고, **예수**께서 **로마** 군인에게 넘겨진 직후에, **주님**의 추종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체포하기 위해 성전 경비병들이 **겻세마네**로 신속히 파견됐다. 그러나 이 추종자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흩어졌다. 사도들은 지정된 은신처에 숨었으며; **그리스인**은 헤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집으로 숨었으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신했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기도와 경배를 위해 **주님**이 종종 물리나 계셨던 산골짜기로, 대어섯 개의 천막을 일찌감치 옮겨놓았다. 그는 이곳에 숨어있으면서, 연락 업무를 관리하는 본부 또는 협조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로 했다. 성전 경비병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가까스로 야영지를 빠져나갔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야영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으로 돌아갔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지리멸렬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없어졌다고 안심했다. 그들은 마침내 편히 숨 쉴 수 있게 됐으므로, 회의를 폐하고, 각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갔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자마자, 한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겻세마네**로 떠났고, 5분 후에는, **벳새다**, **펠라**, **필라델피아**, **시돈**, **세겜**, **헤브론**, **다마스쿠스**, 및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심부름꾼들이 달려갔다. 그리고 이 심부름꾼들은, **유대인** 관리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서 **로마인**이 **예수**를 곧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주님**이 무덤에 안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비극적인 이날 하루 종일, **다윗**은 사도들과 **그리스인**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에게, 거의 30분마다 심부름꾼을 보냈다. **예수**께서 매장됐다는 소식을 갖고 심부름꾼들이 떠나자, **다윗**은 가까운 지역에 보내는 심부름꾼 단체가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산시키면서, **니고데모**의 집으로 일요일 아침에 모두 은밀히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거기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며칠 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다.

this local universe of time and space. In his matchless life he never failed to reveal God to man. Now, in these final episodes of his mortal career and in his subsequent death, he made a new and touching revelation of man to God.

3. THE DEPENDABLE DAVID ZEBEDEE

186:3.1 (2000.4) Shortly after Jesus was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before Pilate, a detachment of the temple guards hastened out to Gethsemane to disperse or arrest the followers of the Master. But long before their arrival these followers had scattered. The apostles had retired to designated hiding places; the Greeks had separated and gone to various homes in Jerusalem; the other disciples had likewise disappeared. David Zebedee believed that Jesus' enemies would return; so he early removed some five or six tents up the ravine near where the Master so often retired to pray and worship. Here he proposed to hide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a center, or co-ordinating station, for his messenger service. David had hardly left the camp when the temple guards arrived. Finding no one there, they contented themselves with burning the camp and then hastened back to the temple. On hearing their report, the Sanhedrin was satisfied that the followers of Jesus were so thoroughly frightened and subdued that there would be no danger of an uprising or any attempt to rescue Jesus from the hands of his executioners. They were at last able to breathe easily, and so they adjourned, every man going his way to prepare for the Passover.

186:3.2 (2000.5) As soon as Jesus was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by Pilate for crucifixion, a messenger hastened away to Gethsemane to inform David, and within five minutes runners were on their way to Bethsaida, Pella, Philadelphia, Sidon, Shechem, Hebron, Damascus, and Alexandria. And these messengers carried the news that Jesus was about to be crucified by the Romans at the insistent behest of the rulers of the Jews.

186:3.3 (2001.1) Throughout this tragic day, until the message finally went forth that the Master had been laid in the tomb, David sent messengers about every half hour with reports to the apostles, the Greeks, and Jesus' earthly family, assembled at the home of Lazarus in Bethany. When the messengers departed with the word that Jesus had been buried, David dismissed his corps of local runners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and for the coming Sabbath of rest, instructing them to report to him quietly on Sunday morning at the home of Nicodemus, where he proposed to go in hiding for a few days with Andrew and Simon Peter.

독특한 성향의 이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죽게 될 것이고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온전한 견해와 명백히 실제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자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언젠가 이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꼼꼼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소식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요일 이른 아침에 **니고 데모**의 집으로 모이라고, 심부름꾼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가 그토록 속히 무덤에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곧 발견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심부름꾼 부대를 일요일 아침 일찍 동원시킨 것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금요일 오전에 멀리 있는 도시와 신자들 무리에게 파견했던 심부름꾼들에게만 알려줬다.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날 밤에는 **유월절**에 참여했고, 이튿날에는 계속 숨어있었다.

4. 십자가에 못박기 위한 준비

빌라도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아우성에 저항하기가 두려워서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줬다는 죄의식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대중 앞에서 손을 씻은 후에, **주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했으며, 즉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휘관에게 명령했다. **예수**를 맡게 된 병사들은 그를 다시 집정관 관저 안마당으로 끌고 갔으며, **헤롯**이 입혀준 예복을 벗기고, 그가 원래 입었던 옷을 입혔다. 이 병사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홀로 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있게 됐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숨었으며; 대적하던 자들은 다 돌아갔으며; **요한 세베대**도 더 이상 옆에 남아있지 않았다.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에게 넘겨준 것은 여덟 시 조금 지났을 때였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로 출발한 것은 아홉 시 조금 전이었다. 30분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우주의 행정 업무가 실제로 정지됐다. **가브리엘**과 주요 **네바돈** 통치자들은, 모두 이곳 **유란시아**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계속 조언하려고 애쓰면서, 일정한 간격을 둔 천사장들의 보고에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었다.

예수와 함께 병사들이 **골고다**를 향해 출발할 때까지, 그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성과 색다른 위엄으로 인해, 즉 불평하지 않는 그의 침묵에 감명받기 시작했다.

186:3.4 (2001.2) This peculiar-minded David Zebedee was the only one of the leading disciples of Jesus who was inclined to take a literal and plain matter-of-fact view of the Master's assertion that he would die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David had once heard him make this prediction and, being of a literal turn of mind, now proposed to assemble his messengers early Sunday morning at the home of Nicodemus so that they would be on hand to spread the news in case Jesus rose from the dead. David soon discovered that none of Jesus' followers were looking for him to return so soon from the grave; therefore did he say little about his belief and nothing about the mobilization of all his messenger force on early Sunday morning except to the runners who had been dispatched on Friday forenoon to distant cities and believer centers.

186:3.5 (2001.3) And so these followers of Jesus, scattered throughout Jerusalem and its environs, that night partook of the Passover and the following day remained in seclusion.

4. PREPARATION FOR THE CRUCIFIXION

186:4.1 (2001.4) After Pilate ha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multitude, thus seeking to escape the guilt of delivering up an innocent man to be crucified just because he feared to resist the clamor of the rulers of the Jews, he ordered the Master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and gave the word to their captain that he was to be crucified immediately. Upon taking charge of Jesus, the soldiers led him back into the courtyard of the praetorium, and after removing the robe which Herod had put on him, they dressed him in his own garments. These soldiers mocked and derided him, but they did not inflict further physical punishment. Jesus was now alone with these Roman soldiers. His friends were in hiding; his enemies had gone their way; even John Zebedee was no longer by his side.

186:4.2 (2001.5) It was a little after eight o'clock when Pilate turned Jesus over to the soldiers and a little before nine o'clock when they started for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During this period of more than half an hour Jesus never spoke a word. The executive business of a great universe was practically at a standstill. Gabriel and the chief rulers of Nebadon were either assembled here on Urantia, or else they were closely attending upon the space reports of the archangels in an effort to keep advised as to what was happening to the Son of Man on Urantia.

186:4.3 (2001.6) By the time the soldiers were ready to depart with Jesus for Golgotha, they had begun to be impressed by his unusual composure and extraordinary dignity, by his uncomplaining silence.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 장소로 출발하는 일이 늦어지게 된 주요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를 함께 처형하기로 지휘관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로마** 지휘관은, **예수**를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됐으므로, 그 두 사람도 **유월절** 축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같이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강도들은 준비되자마자 안마당으로 끌려왔으며, 거기서 **예수**를 쳐다봤고, 한 사람은 처음 봤지만,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달 전에 **펠라** 야영지에서, 그가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5.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예수의 죽음과 **유대인**의 **유월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시간 무렵인 이날에 **예수**께서 목숨을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의 죽음이, **유대인**의 희생 제사 체제와 어떤 의미에서든 연결됐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께서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그 영역에 속하는 필사자였다. **주님**의 임박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술된 사건들만으로도, 이때 그의 죽음이 순전히 자연스런 것이었고,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었음을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사(人間事)의 진행에 **아버지**께서 간섭하기를 거절하셨음이 사실이지만, **낙원**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죽으라고 **아들**에게 명하거나,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필사자 육신을 버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체 속에서 만드시기 가져야 될 체험, 즉 일곱 번째의 마지막 증여를 완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체험의 기법을, 그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완성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임무는 바로 그때 완료됐다. 그 후에 살았던 여생은 모두, 그리고 그가 죽는 방법까지도, 이 세계는 물론 다른 세계들에 존재하는 필사 피조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 순전히 개인적인 사역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필사적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기

186:4.4 (2001.7) Much of the delay in starting off with Jesus for the site of the crucifixion was due to the last-minute decision of the captain to take along two thieves who had been condemned to die; since Jesus was to be crucified that morning, the Roman captain thought these two might just as well die with him as wait for the end of the Passover festivities.

186:4.5 (2002.1) As soon as the thieves could be made ready, they were led into the courtyard, where they gazed upon Jesus, one of them for the first time, but the other had often heard him speak, both in the temple and many months before at the Pella camp.

5. JESUS' DEATH IN RELATION TO THE PASSOVER

186:5.1 (2002.2) There is no direct relation between the death of Jesus and the Jewish Passover. True, the Master did lay down his life in the flesh on this day, the day of the preparation for the Jewish Passover, and at about the time of the sacrificing of the Passover lambs in the temple. But this coincidental occurrence does not in any manner indicate that the death of the Son of Man on earth has any connection with the Jewish sacrificial system. Jesus was a Jew, but as the Son of Man he was a mortal of the realms. The events already narrated and leading up to this hour of the Master's impending crucifixion are sufficient to indicate that his death at about this time was a purely natural and man-managed affair.

186:5.2 (2002.3) It was man and not God who planned and execute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True, the Father refused to interfere with the march of human events on Urantia, but the Father in Paradise did not decree, demand, or require the death of his Son as it was carried out on earth. It is a fact that in some manner, sooner or later, Jesus would have had to divest himself of his mortal body, his incarnation in the flesh, but he could have executed such a task in countless ways without dying on a cross between two thieves. All of this was man's doing, not God's.

186:5.3 (2002.4) At the time of the Master's baptism he had already completed the technique of the required experience on earth and in the flesh which was necessary for the completion of his seventh and last universe bestowal. At this very time Jesus' duty on earth was done. All the life he lived thereafter, and even the manner of his death, was a purely personal ministry on his part for the welfare and uplifting of his mortal creatures on this world and on other worlds.

186:5.4 (2002.5) The gospel of the good news that mortal man may, by faith, become spirit-conscious

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상관 없다. **주님**의 죽음으로 이 천국 복음 전체가 대단히 빛을 받아왔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로 인하여 훨씬 더 빛을 받았다.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말씀하고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한 교리를 매우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 관계성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아들**들이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자비(慈悲)라는 우주적 사실에 내재돼 있다. 온갖 우주 도처에 이 세계는 물론 다른 모든 세계에서,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는 영원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의 이런 주기적 증여 시행과 상관없는데, 그들은 이처럼 각 지방우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값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들의 본성과 모습을 입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예수**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보여준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가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있는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셨다. **네바돈**의 **하나님**이 **유란시아**에 사람으로 육신화 한 이 엄청난 사건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보편적인 **아버지**의 속성들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지만, **네바돈**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경영자와 피조물을 계몽시키고 풍성케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미가엘**의 이런 증여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천상의 지성체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온갖 우주에 있는 천상의 지성체들에게 사람을 새롭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죽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타고난 도덕적 죄책감을 속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족 전체가 가져야 할 그런 죄책감은 인류에게 없다. 죄책감은, 순전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 즉 **아버지** 뜻과 **아들**의 경영에 대항해서 고의로 반역했음을 아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구원 계획이 증여 계획 가운데 일시적 기능인 것 같더라도, 죄와 반역은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근본적인 증여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께서 무지한 필사자의 잔인한 손에 죽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유효하고 반드시 이뤄졌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로 부터 호의적으로 환영받았더라도, 그리고 육신 속에서 지내던 삶을 자발적으로 단념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라는 사실은--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사실은-- 결코 영향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that he is a son of God, is not dependent on the death of Jesus. True, indeed, all this gospel of the kingdom has been tremendously illuminated by the Master's death, but even more so by his life.

186:5.5 (2002.6) All that the Son of Man said or did on earth greatly embellished the doctrines of sonship with God and of the brotherhood of men, but these essential relationships of God and men are inherent in the universe facts of God's love for his creatures and the innate mercy of the divine Sons. These touching and divinely beautiful relations between man and his Maker, on this world and on all other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have existed from eternity; and they are not in any sense dependent on these periodic bestowal enactments of the Creator Sons of God, who thus assume the nature and likeness of their created intelligences as a part of the price which they must pay for the final acquirement of unlimited sovereignty over their respective local universes.

186:5.6 (2002.7) The Father in heaven loved mortal man on earth just as much before the life and death of Jesus on Urantia as he did after this transcendent exhibition of the copartnership of man and God. This mighty transaction of the incarnation of the God of Nebadon as a man on Urantia could not augment the attributes of the eternal, infinite, and universal Father, but it did enrich and enlighten all other administrators and creatures of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the Father in heaven loves us no more because of this bestowal of Michael, all other celestial intelligences do. And this is because Jesus not only made a revelation of God to man, but he also likewise made a new revelation of man to the Gods and to the celestial intelligenc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86:5.7 (2003.1) Jesus is not about to die as a sacrifice for sin. He is not going to atone for the inborn moral guilt of the human race. Mankind has no such racial guilt before God. Guilt is purely a matter of personal sin and knowing,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administration of his Sons.

186:5.8 (2003.2) Sin and rebellion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undamental bestowal plan of the Paradise Sons of God, albeit it does appear to us that the salvage plan is a provisional feature of the bestowal plan.

186:5.9 (2003.3) The salvation of God for the mortals of Urantia would have been just as effective and unerringly certain if Jesus had not been put to death by the cruel hands of ignorant mortals. If the Master had been favorably received by the mortals of earth and had departed from Urantia by the voluntary relinquishment of his life in the flesh, the fact of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the Son — the fact of sonship with God — would have in no wise been affected. You mortals are the sons of

이며, 너희의 개인 체험에서 그런 진리가 사실로 이뤄지게 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요구 사항밖에 없는데, 영으로_태어난 너희의 신앙이다.

God, and only one thing is required to make such a truth factual in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that is your spirit-born faith.

제187편. 십자가형

⇨ 186

유랜시아 책

188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87편
십자가형

섹션

소개

1. 골고다로 가는 길
2. 십자가형
3.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4. 십자가 위의 강도
5.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
6. 십자가형 이후

PAPER 187
THE CRUCIFIXION

SECTIONS

Introduction

1. On the Way to Golgotha
2. The Crucifixion
3. Those Who Saw the Crucifixion
4. The Thief on the Cross
5. Last Hour on the Cross
6. After the Crucifixion

소개

두 강도가 준비된 후에, 병사들은 백부장(百夫長)의 인솔 하에 십자가형(十字架刑)이 있을 현장으로 출발했다. 열두 명의 이 군인을 책임 맡은 백부장은,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병사들을 인솔하고 갔던 그 지휘관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히는 각 사람마다 네 명의 군인이 배정되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다. 두 강도는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끌려가기 전에 절차대로 채찍질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육체의 형벌은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며, 지휘관은 그가 유죄판결 전에 맞은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채찍에 맞았다고 생각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는 **바라바**의 동역자였고, 그가 **빌라도**의 **유월절** 특사(特赦)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나중엔 사형 당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 **예수**께서 하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 그는 이런 체험을 예고하면서 말씀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내

INTRODUCTION

187:0.1 (2004.1) AFTER the two brigands had been made ready, the soldiers, under the direction of a centurion, started for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The centurion in charge of these twelve soldiers was the same captain who had led forth the Roman soldiers the previous night to arrest Jesus in Gethsemane. It was the Roman custom to assign four soldiers for each person to be crucified. The two brigands were properly scourged before they were taken out to be crucified, but Jesus was given no further physical punishment; the captain undoubtedly thought he had already been sufficiently scourged, even before his condemnation.

187:0.2 (2004.2) The two thieves crucified with Jesus were associates of Barabbas and would later have been put to death with their leader if he had not been released as the Passover pardon of Pilate. Jesus was thus crucified in the place of Barabbas.

187:0.3 (2004.3) What Jesus is now about to do, submit to death on the cross, he does of his own free will. In foretelling this experience, he said: “The Father loves and sustains me because I am willing to lay down my life. But I will take it up again. No one takes my life away from me — I lay

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그런 계명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날 아침 아홉 시 조금 전에, 병사들이 집정관 관저에서 **골고다**를 향한 길로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를 몰래 동정하는 많은 사람도 그들을 따라왔지만, 200명이 넘는 이 무리 대부분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지켜봄으로써 짜릿한 충격을 즐기려는 호기심 많은 한심한 자들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단지 몇 명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예수**를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를 **로마** 군인에게 넘겨줬다는 것과, 그가 사형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성전에서 회의하느라 바빴으며, **예수**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1. 골고다로 가는 길

집정관 관저의 안마당을 떠나기에 앞서, 병사들이 가로 들보를 **예수**의 어깨에 메웠다. 사형수에게 가로 들보를 지게 해서 십자가 형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런 사형수는, 십자가 전체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이 나무만 지게 했다. 세 개의 십자가를 위한, 길고 똑바로 세워질 나무들은 이미 **골고다**로 운반됐고, 군인과 죄수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벌써 땅속에 견고히 세워져 있었다.

지휘관은 관습에 따라서 행렬을 인도했고, 죄인의 이름과 그들이 유죄 판결 받게 된 죄의 종류를 그 위에 솟으로 기록한, 하얀 색의 작은 칠판을 들고 있었다. 백부장은 두 강도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쓴 후에, 그 밑에 “**강도**”라는 한 마디를 적은 게시판을 지니고 있었다. 죄수가 가로 들보에 못박히고 똑바로 세워진 나무 위 제자리에 끌어올려진 후에는, 죄수의 머리 바로 위 십자가 꼭대기에 이 게시판을 못으로 박아 놓아서, 그 사형수가 무슨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지, 보는 사람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붙이기 위해 백부장이 가져온 죄패(罪牌)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및 **아람어로 빌라도**가 직접 기록했으며,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빌라도가 이 패를 쓸 때, 아직 거기에 남아 있던 **유대인** 권세자 몇 사람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죄명(罪名)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 기소 내용의 일부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유대인**이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적어도 그 내용이,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계속 간청하는

it down of myself.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I have authority to take it up. I have received such a commandment from my Father.”

187:0.4 (2004.4) It was just before nine o'clock this morning when the soldiers led Jesus from the praetorium on the way to Golgotha. They were followed by many who secretly sympathized with Jesus, but most of this group of two hundred or more were either his enemies or curious idlers who merely desired to enjoy the shock of witnessing the crucifixions. Only a few of the Jewish leaders went out to see Jesus die on the cross. Knowing that he had been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by Pilate, and that he was condemned to die, they busied themselves with their meeting in the temple, whereat they discussed what should be done with his followers.

1. ON THE WAY TO GOLGOTHA

187:1.1 (2004.5) Before leaving the courtyard of the praetorium, the soldiers placed the crossbeam on Jesus' shoulders. It was the custom to compel the condemned man to carry the crossbeam to the site of the crucifixion. Such a condemned man did not carry the whole cross, only this shorter timber. The longer and upright pieces of timber for the three crosses had already been transported to Golgotha and, by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oldiers and their prisoners, had been firmly implanted in the ground.

187:1.2 (2004.6) According to custom the captain led the procession, carrying small white boards on which had been written with charcoal the names of the criminals and the nature of the crimes for which they had been condemned. For the two thieves the centurion had notices which gave their names, underneath which was written the one word, “Brigand.” It was the custom, after the victim had been nailed to the crossbeam and hoisted to his place on the upright timber, to nail this notice to the top of the cross, just above the head of the criminal, that all witnesses might know for what crime the condemned man was being crucified. The legend which the centurion carried to put on the cross of Jesus had been written by Pilate himself in Latin, Greek, and Aramaic, and it read: “Jesus of Nazareth — the King of the Jews.”

187:1.3 (2005.1) Some of the Jewish authorities who were yet present when Pilate wrote this legend made vigorous protest against calling Jesus the “king of the Jews.” But Pilate reminded them that such an accusation was part of the charge which led to his condemnation. When the Jews saw they could not prevail upon Pilate to change his mind, they pleaded that at least it be modified to read, “He said, ‘I am the king of the Jews.’” But Pilate was adamant; he would not alter the writing. To all

그들에게 오직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형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골고다**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그들은 이날 성의 북쪽으로 나가는 **다마스커스** 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로 갔고, 이 길을 따라서 곧 **골고다**에 도착했으며,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식 십자가 형장이었다. **골고다**를 지나가면 부자들의 저택이 있었고, 길 반대편에는 많은 부유층 **유대인**의 무덤이 있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이 처벌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페니키아인**으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웠다. 아주 잔인한 **헤롯**도 십자가형을 채택하지 않았다. **로마인**은 결코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으며; 오직 노예와 피지배자들만 이런 수치스런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꼭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돼 있는 동안, **골고다** 전체가 매일 같이 수천 개의 십자가로 뒤덮였고, **유대** 종족의 활짝 폈던 영화(榮華)가 거기서 사라져갔다. 이 시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정말로 형편없는 수확이었다.

죽음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지나가자, 연민의 정과 즐거운 기운으로 가득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그의 삶을 아는 인정 많은 다수의 **유대인** 여자가, 그런 야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끌려가는 그를 보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이 여자들 대부분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통해 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용감하게 그의 옆에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씀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슬퍼하라. 나의 일은 거의 끝났지만--즉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극심한 고난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아이를 낳지 못한 자와 자녀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자가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재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덕 위의 돌이 너희에게 굴러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은 엄격히 법에 어긋났으므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에 대해 동정심을 보인 것은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었다. 사람들이 사형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은 허용됐지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됐다. **예수**께서는 친구들이 숨어있는 이 암담한 때에 보여주는 동정심에 고맙게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씨 고운 이 여자들이 그에게 감히 동정심을 나타냄으로써 권세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민족에 임할 극대

further supplication he only repli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187:1.4 (2005.2) Ordinarily, it was the custom to journey to Golgotha by the longest road in order that a large number of persons might view the condemned criminal, but on this day they went by the most direct route to the Damascus gate, which led out of the city to the north, and following this road, they soon arrived at Golgotha, the official crucifixion site of Jerusalem. Beyond Golgotha were the villas of the wealthy,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were the tombs of many well-to-do Jews.

187:1.5 (2005.3) Crucifixion was not a Jewish mode of punishment. Both the Greeks and the Romans learned this method of execution from the Phoenicians. Even Herod, with all his cruelty, did not resort to crucifixion. The Romans never crucified a Roman citizen; only slaves and subject peoples were subjected to this dishonorable mode of death. During the siege of Jerusalem, just forty years after the crucifixion of Jesus, all of Golgotha was covered by thousands upon thousands of crosses upon which, from day to day, there perished the flower of the Jewish race. A terrible harvest, indeed, of the seed-sowing of this day.

187:1.6 (2005.4) As the death procession passed along the narrow streets of Jerusalem, many of the tenderhearted Jewish women who had heard Jesus' words of good cheer and compassion, and who knew of his life of loving ministry, could not refrain from weeping when they saw him being led forth to such an ignoble death. As he passed by, many of these women bewailed and lamented. And when some of them even dared to follow along by his side, the Master turned his head toward them and said: “Daughters of Jerusalem, weep not for me, but rather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My work is about done — soon I go to my Father — but the times of terrible trouble for Jerusalem are just beginning. Behold, the days are coming in which you sha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and those whose breasts have never suckled their young. In those days will you pray the rocks of the hills to fall on you in order that you may be delivered from the terrors of your troubles.”

187:1.7 (2005.5) These women of Jerusalem were indeed courageous to manifest sympathy for Jesus, for it was strictly against the law to show friendly feelings for one who was being led forth to crucifixion. It was permitted the rabble to jeer, mock, and ridicule the condemned, but it was not allowed that any sympathy should be expressed. Though Jesus appreciated the manifestation of sympathy in this dark hour when his friends were in hiding, he did not want these kindhearted women to incur the displeasure of the authorities by daring to show compassion in his behalf. Even

로 비극적인 날들을 생각했다.

주님이 십자가 형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힘들게 걸음을 옮길 때, 매우 지쳐있었으며;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엘리아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로 음식과 물을 조금도 섭취하지 못했으며; 또한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더욱이, 사나운 체적질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고 받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심문을 받아왔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그의 극단적인 정신적 고뇌, 날카로운 영적 긴장감, 그리고 극심한 인간적 고통감이 덧붙여졌다.

그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과한 후 얼마 안되어, **예수**께서는 가로 들보를 이겨내지 못해 비틀거렸고, 체력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병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발로 찼으나,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것을 본 지휘관은, **예수**께서 이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병사들에게 그만 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령해서, **예수**의 어깨 위에 있는 가로 들보를 내려서 **골고다**까지 남은 길을 강제로 지고 가도록 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에서 먼 길을 왔다. **로마** 지휘관이 **예수**의 가로 들보를 지고 가도록 명했을 때, 그는 성{城}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던 도중에, 다른 **구레네인**과 함께 바로 성 밖에서 쉬고 있었다. **시몬**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동안 내내 떠나지 않았고, **주님**의 친구와 적들 가운데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는 천국 복음의 훌륭한 신자가 됐으며, 고향에 돌아간 후에는, 온 가족을 하늘 나라로 인도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프리카**에서 새 복음을 가르치는 매우 훌륭한 선생이 됐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짐을 대신 져줬던 그 사람, 그리고 부상당했던 자기 아들과 한때 친구로 지냈던 그 **유대인** 개인 교사가, 이 **예수**와 동일 인물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죽음의 행렬이 **골고다**에 도착한 것은 아홉시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로마** 군인들은 두 강도와 **사람의 아들**을 각자의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직접 착수했다.

2. 십자가형

병사들은 먼저 **주님**의 팔을 가로 들보에 끈으로 묶었고, 그 후에 그의 손을 나무에 못박았다. 그들은 이 가로 들보를 기둥 위로 끌어올리고, 똑바로 세워진 십자가 나무에 견고히 못박은 후에, 발

at such a time as this Jesus thought little about himself, only of the terrible days of tragedy ahead for Jerusalem and the whole Jewish nation.

187:1.8 (2006.1) As the Master trudged along on the way to the crucifixion, he was very weary; he was nearly exhausted. He had had neither food nor water since the Last Supper at the home of Elijah Mark; neither had he been permitted to enjoy one moment of sleep. In addition, there had been one hearing right after another up to the hour of his condemnation, not to mention the abusive scourgings with their accompanying physical suffering and loss of blood. Superimposed upon all this was his extreme mental anguish, his acute spiritual tension, and a terrible feeling of human loneliness.

187:1.9 (2006.2) Shortly after passing through the gate on the way out of the city, as Jesus staggered on bearing the crossbeam, his physical strength momentarily gave way, and he fell beneath the weight of his heavy burden. The soldiers shouted at him and kicked him, but he could not arise. When the captain saw this, knowing what Jesus had already endured, he commanded the soldiers to desist. Then he ordered a passerby, one Simon from Cyrene, to take the crossbeam from Jesus' shoulders and compelled him to carry it the rest of the way to Golgotha.

187:1.10 (2006.3) This man Simon had come all the way from Cyrene, in northern Africa, to attend the Passover. He was stopping with other Cyrenians just outside the city walls and was on his way to the temple services in the city when the Roman captain commanded him to carry Jesus' crossbeam. Simon lingered all through the hours of the Master's death on the cross, talking with many of his friends and with his enemies. After the resurrection and before leaving Jerusalem, he became a valiant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hen he returned home, he led his family into the heavenly kingdom. His two sons, Alexander and Rufus, became very effective teachers of the new gospel in Africa. But Simon never knew that Jesus, whose burden he bore, and the Jewish tutor who once befriended his injured son, were the same person.

187:1.11 (2006.4) It was shortly after nine o'clock when this procession of death arrived at Golgotha, and the Roman soldiers set themselves about the task of nailing the two brigands and the Son of Man to their respective crosses.

2. THE CRUCIFIXION

187:2.1 (2006.5) The soldiers first bound the Master's arms with cords to the crossbeam, and then they nailed his hands to the wood. When they had hoisted this crossbeam up on the post, and after

도 나무에 묶고 못박았으며, 한 개의 긴 못으로 두 발을 관통하도록 했다. 똑바로 세워진 나무에는 큰 세기 못이 적당한 높이에 박혀 있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 그 십자가는 높지 않았으므로, **주님**의 발끝에서 땅까지는 약 3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비롯한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인정머리 없이 조롱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또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지속되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긴 시간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옷을 모두 벗기는 것이 관례였지만, 벗겨진 육체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유대인**이 완강히 거부했으므로, **로마인**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마다, 적당히 허리 부분만 감추는 옷을 입혔다. 따라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런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십자가형은 오래 지속되게 하는 잔인한 형벌로 이용됐고, 사형수가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형을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 형장에 늘 대표자를 보내는 **유대인** 부인회(婦人會)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취제가 섞인 이 포도주를 맛봤을 때, 그토록 목이 말랐지만, 마시기를 거절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의식(意識)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는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식 속에서도 죽음에 대처하고, 완전한 인간 체험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두 강도가 이미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고, 그동안 내내 형 집행자들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때, 그는 오직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뿐이다. 애정 어린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애타적으로 봉사한 자신의 삶 전체의 주요 동기가 아니었다면,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그가 그토록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에 하던, 생각, 동기, 및 바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로 끌어 올려진 후에, 지휘관이 그의 머리 위쪽 십자가에 죄패를 못으로 박았고, 세 나라 말로,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대인**은 이것이 자기네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믿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약이 올랐으며; 자기가 헐박당하고 자존심 상했던 것을 생각하고,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보복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 반역자”라고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이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았으므로,

they had nailed it securely to the upright timber of the cross, they bound and nailed his feet to the wood, using one long nail to penetrate both feet. The upright timber had a large peg, inserted at the proper height, which served as a sort of saddle for supporting the body weight. The cross was not high, the Master's feet being only about three feet from the ground. He was therefore able to hear all that was said of him in derision and could plainly see the expression on the faces of all those who so thoughtlessly mocked him. And also could those present easily hear all that Jesus said during these hours of lingering torture and slow death.

187:2.2 (2007.1) It was the custom to remove all clothes from those who were to be crucified, but since the Jews greatly objected to the public exposure of the naked human form, the Romans always provided a suitable loin cloth for all persons crucified at Jerusalem. Accordingly, after Jesus' clothes had been removed, he was thus garbed before he was put upon the cross.

187:2.3 (2007.2) Crucifixion was resorted to in order to provide a cruel and lingering punishment, the victim sometimes not dying for several days. There was considerable sentiment against crucifixion in Jerusalem, and there existed a society of Jewish women who always sent a representative to crucifixions for the purpose of offering drugged wine to the victim in order to lessen his suffering. But when Jesus tasted this narcotized wine, as thirsty as he was, he refused to drink it. The Master chose to retain his human consciousness until the very end. He desired to meet death, even in this cruel and inhuman form, and conquer it by voluntary submission to the full human experience.

187:2.4 (2007.3) Before Jesus was put on his cross, the two brigands had already been placed on their crosses, all the while cursing and spitting upon their executioners. Jesus' only words, as they nailed him to the crossbeam, were,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He could not have so mercifully and lovingly interceded for his executioners if such thoughts of affectionate devotion had not been the mainspring of all his life of unselfish service. The ideas, motives, and longings of a lifetime are openly revealed in a crisis.

187:2.5 (2007.4) After the Master was hoisted on the cross, the captain nailed the title up above his head, and it read in three languages, “Jesus of Nazareth — the King of the Jews.” The Jews were infuriated by this believed insult. But Pilate was chafed by their disrespectful manner; he felt he had been intimidated and humiliated, and he took this method of obtaining petty revenge. He could have written “Jesus, a rebel.” But he well knew how these Jerusalem Jews detested the very name of Nazareth, and he was determined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작정했다. 사형당한 이 **갈릴리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골수까지 쓰리게 될 것을 알았다.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다수는, **빌라도**가 이런 기록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여서 자기들을 얼마나 조롱하려는지 알고, 서둘러 **골고다**로 달려갔지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없애려 하지 못했다. 그 죄패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도 그 기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지도자들은 인파 속에 섞여서 비웃고 조소하도록 힘을 다해 선동했다.

예수를 십자가 위의 제 위치로 끌어 올린 직후에, 그리고 지휘관이 죄패를 **주님**의 머리 위편에 못으로 박고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룻**, 그리고 **유다**와 함께 **사도 요한**이 거기에 도착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거기에 모시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후 한동안 거기에 없었지만, 열한 사도 중에서 십자가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과 남동생 및 여동생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자 미소를 띠었지만, 아무 말수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은 관례대로 그의 옷을 서로 나뉘으며, 한 사람은 신발을, 한 사람은 머리에 두르는 수건을, 한 사람은 허리띠를,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외투를 택했다. 무릎 아래까지 닿는 이음매 없는 남겨진 이 속옷 하나를 네 조각으로 나누려고 하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아님을 본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서 갖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기 옷을 나누는 그들과 자기를 조롱하는 경솔한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갖는 것은 잘된 일이었다. 그러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이 이 옷가지들을 가졌다면, 유물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주님**은, 추종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에 바쳐지는 높은 영적 이상(理想)에 헌신된 인간 생애에 대한 그 기억만을 인류에게 남기려고 했다.

3.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이 금요일 아침 아홉 시 반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열한 시 전까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런 소름끼치는 시간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무리는,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죽음,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 가장 비참한 죽음을 **창조주**께서 맞이하는 이 엄청난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thus to humiliate them. He knew that they would also be cut to the very quick by seeing this executed Galilean called “The King of the Jews.”

187:2.6 (2007.5) Many of the Jewish leaders, when they learned how Pilate had sought to deride them by placing this inscription on the cross of Jesus, hastened out to Golgotha, but they dared not attempt to remove it since the Roman soldiers were standing on guard. Not being able to remove the title, these leaders mingled with the crowd and did their utmost to incite derision and ridicule, lest any give serious regard to the inscription.

187:2.7 (2007.6) The Apostle John, with Mary the mother of Jesus, Ruth, and Jude, arrived on the scene just after Jesus had been hoisted to his position on the cross, and just as the captain was nailing the title above the Master's head. John was the only one of the eleven apostles to witness the crucifixion, and even he was not present all of the time since he ran into Jerusalem to bring back his mother and her friends soon after he had brought Jesus' mother to the scene.

187:2.8 (2007.7) As Jesus saw his mother, with John and his brother and sister, he smiled but said nothing. Meanwhile the four soldiers assigned to the Master's crucifixion, as was the custom, had divided his clothes among them, one taking the sandals, one the turban, one the girdle, and the fourth the cloak. This left the tunic, or seamless vestment reaching down to near the knees, to be cut up into four pieces, but when the soldiers saw what an unusual garment it was, they decided to cast lots for it. Jesus looked down on them while they divided his garments, and the thoughtless crowd jeered at him.

187:2.9 (2008.1) It was well that the Roman soldiers took possession of the Master's clothing. Otherwise, if his followers had gained possession of these garments, they would have been tempted to resort to superstitious relic worship. The Master desired that his followers should have nothing material to associate with his life on earth. He wanted to leave mankind only the memory of a human life dedicated to the high spiritual ideal of being consecrated to doing the Father's will.

3. THOSE WHO SAW THE CRUCIFIXION

187:3.1 (2008.2) At about half past nine o'clock this Friday morning, Jesus was hung upon the cross. Before eleven o'clock, upward of one thousand persons had assembled to witness this spectacle of the crucifixion of the Son of Man. Throughout these dreadful hours the unseen hosts of a universe stood in silence while they gazed upon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of the Creator as he was dying the death of the creature, even the

십자가에 달린 동안 언젠가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 룿, 유다, 요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예수**의 이모이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전에 **세포리**에 있었던 **리브가** 등을 포함하여, 진지하게 믿는 여러 명의 여신도가 있었다. 이 사람들 및 **예수**의 다른 친구들은, 그의 위대한 인내심과 꾀꾀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극심한 수난을 지켜보면서 침묵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그를 조롱했다: “네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으니,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또 어떤 **유대인** 관리들도 비슷한 태도로 조롱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를 더욱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줄 것으로 믿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자, 저를 봐라--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심지어 두 강도 역시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들의 조롱에 **예수**께서 대꾸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특별한 예비일의 정오 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열한 시 반쯤이 되자, 희롱하고 야유하던 인파 대부분이 돌아갔으며; 오십 명 미만의 사람이 거기에 남았다. 병사들은 오랫동안 죽는 과정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값싼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예수**를 향해 건배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행운을 위하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주님**의 관대함에 놀랐다.

먹고 마시는 것을 본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목마르다.” 경비대 지휘관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병에서 약간의 포도주를 따라서 스펀지로 된 병마개를 흠뻑 적신 후, 창끝에 달아올려서 **예수**께서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실 수 있게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었으며,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살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죽고자 했다.

4. 십자가 위의 강도

강도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자신과 우리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비난하자, 여러 번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강도가 말했다.

most ignoble death of a condemned criminal.

187:3.2 (2008.3) Standing near the cross at one time or another during the crucifixion were Mary, Ruth, Jude, John, Salome (John's mother), and a group of earnest women believers including Mary the wife of Clopas and sister of Jesus' mother, Mary Magdalene, and Rebecca, onetime of Sepphoris. These and other friends of Jesus held their peace while they witnessed his great patience and fortitude and gazed upon his intense sufferings.

187:3.3 (2008.4) Many who passed by wagged their heads and, railing at him, said: “You who would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again in three days, save yourself. If you are the Son of God, why do you not come down from your cross?” In like manner some of the rulers of the Jews mocked him, saying, “He saved others, but himself he cannot save.” Others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you.” And later on they mocked him the more, saying: “He trusted in God to deliver him. He even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 look at him now — crucified between two thieves.” Even the two thieves also railed at him and cast reproach upon him.

187:3.4 (2008.5) Inasmuch as Jesus would make no reply to their taunts, and since it was nearing noontime of this special preparation day, by half past eleven o'clock most of the jesting and jeering crowd had gone its way; less than fifty persons remained on the scene. The soldiers now prepared to eat lunch and drink their cheap, sour wine as they settled down for the long deathwatch. As they partook of their wine, they derisively offered a toast to Jesus, saying, “Hail and good fortune! to the king of the Jews.” And they were astonished at the Master's tolerant regard of their ridicule and mocking.

187:3.5 (2008.6) When Jesus saw them eat and drink, he looked down upon them and said, “I thirst.” When the captain of the guard heard Jesus say, “I thirst,” he took some of the wine from his bottle and, putting the saturated sponge stopper upon the end of a javelin, raised it to Jesus so that he could moisten his parched lips.

187:3.6 (2008.7) Jesus had purposed to live without resort to his supernatural power, and he likewise elected to die as an ordinary mortal upon the cross. He had lived as a man, and he would die as a man — doing the Father's will.

4. THE THIEF ON THE CROSS

187:4.1 (2008.8) One of the brigands railed at Jesus, saying, “If you are the Son of God, why do you not save yourself and us?” But when he had reproached Jesus, the other thief, who had many

다: “너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로 마땅히 고통 받지만, 이 사람은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 혼에 대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고개를 돌린 것을 본 그 죄수는 용기를 내어, 꺼질 듯한 신앙의 불길에 부채질 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말하는데, 네가 언젠가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육신이 죽어가는 고통이 한참인 중에도, **주님**은 믿음을 가진 강도의 신앙 고백에 귀 기울였다. 구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강도는 구출됐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여러 번 있었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섰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는 태도를 봤을 때, 이 강도는 **사람의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 강도가 **예수**로 인해 천국으로 전향(轉向)하고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사도 요한**은 거기에 없었고, 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십자가 형장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갔었다. **누가**는 개종한 **로마** 경비원 지휘관에게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사도 요한은, 사건이 있는 지 약 65년 이상 지난 후에야, 기억을 더듬어서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기록들은, 근무하던 **로마** 백부장의 설명에 기초했는데,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으며,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했다.

참회한 강도인 이 젊은이는, 강도 행위야말로 정치적 압제와 사회의 불공정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애국 항거라고 찬미하는 사람들 때문에,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인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모험하고 싶은 충동과 함께 많은 선의의 젊은이를 이끌어서, 기꺼이 강도 원정대에 참여하게 했다. 이 젊은이도 **바라바**를 영웅으로 추앙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정말로 위대한 한 사람, 참된 영웅을 봤다. 그 영웅은, 그의 열성을 불타게 하고, 도덕적 자존감이라는 가장 고상한 관념을 심어주고, 용기와 남자다움과 용맹에 대한 그의 모든 이상(理想)을 소생시켰다.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랑, 충성심, 및 참된 위대함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이 솟아났다.

조종하던 군중들 가운데에서 어떤 다른 사람

times heard the Master teach, said: “Do you have no fear even of God? Do you not see that we are suffering justly for our deeds, but that this man suffers unjustly? Better that we should seek forgiveness for our sins and salvation for our souls.” When Jesus heard the thief say this, he turned his face toward him and smiled approvingly. When the malefactor saw the face of Jesus turned toward him, he mustered up his courage, fanned the flickering flame of his faith, and sai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And then Jesus said, “Verily, veri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sometime be with me in Paradise.”

187:4.2 (2009.1) The Master had time amidst the pangs of mortal death to listen to the faith confession of the believing brigand. When this thief reached out for salvation, he found deliverance. Many times before this he had been constrained to believe in Jesus, but only in these last hours of consciousness did he turn with a whole heart toward the Master's teaching. When he saw the manner in which Jesus faced death upon the cross, this thief could no longer resist the conviction that this Son of Man was indeed the Son of God.

187:4.3 (2009.2) During this episode of the conversion and reception of the thief into the kingdom by Jesus, the Apostle John was absent, having gone into the city to bring his mother and her friends to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Luke subsequently heard this story from the converted Roman captain of the guard.

187:4.4 (2009.3) The Apostle John told about the crucifixion as he remembered the event two thirds of a century after its occurrence. The other records were based upon the recital of the Roman centurion on duty who, because of what he saw and heard, subsequently believed in Jesus and entered in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187:4.5 (2009.4) This young man, the penitent brigand, had been led into a life of violence and wrongdoing by those who extolled such a career of robbery as an effective patriotic protest against political oppression and social injustice. And this sort of teaching, plus the urge for adventure, led many otherwise well-meaning youths to enlist in these daring expeditions of robbery. This young man had looked upon Barabbas as a hero. Now he saw that he had been mistaken. Here on the cross beside him he saw a really great man, a true hero. Here was a hero who fired his zeal and inspired his highest ideas of moral self-respect and quickened all his ideals of courage, manhood, and bravery. In beholding Jesus, there sprang up in his heart an overwhelming sense of love, loyalty, and genuine greatness.

187:4.6 (2009.5) And if any other person among the

이든지, 자기 혼 속에 신앙이 잉태되는 체험을 하고 **예수**의 자비에 호소했다면, 믿음을 가진 그 강도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의 동정심으로 영접 받았을 것이다.

언젠가 **낙원**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회개한 강도가 들은 직후에, **요한**이 성에서 돌아왔고, **예수**의 어머니와 거의 열두 명이나 되는 여신도가 따라왔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서 부축했다. 아들 **유다**는 다른 편에서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것은 정오 무렵이었고,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애야,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둘 다에게, “이 자리를 떠나기 바란다”고 말씀했다. 그리하여 **요한**과 **유다**는 **마리아**를 **갯세마네**에서 모시고 내려갔다. **요한**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곳으로 **예수**의 어머니를 안내한 후에, 서둘러 십자가 형장으로 돌아왔다. **마리아**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벧새다**로 돌아갔고, 거기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1년이 못돼서 죽었다.

마리아가 떠난 후에, 다른 여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할 때까지 거기에 남았으며, **주님**의 몸이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지켜왔다.

5.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

열두 시가 조금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이를 때이기는 했지만, 고운 모래가 바람에 날렸으므로 하늘이 어두워졌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모래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는 현상임을 알았다. 한 시경 됐을 때에는 해가 가려져서 무척 어두웠고, 남아있던 인파도 서둘러 성으로 돌아갔다. 이 시각 후 얼마 안 되어 **주님**이 숨을 거뒀을 때, 30명 미만의 사람, 즉 13명의 **로마** 군인과 15명 정도의 신자 무리만 남아 있었다. 이 신자들은 두 남자, 즉 **예수**의 형제 **유다**와 **주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돌아온 **요한 세베대** 외에는 모두 여자였다.

한 시 조금 지나서, 강한 모래 폭풍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예수**께서는 점차 인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비, 용서, 그리고 훈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관한-- 마지막 소원은 이미 말씀했다. 죽음이 다가오는 동안에 **예수**의 인간 정신은, **히브리** 성서 구절, 특히 **시편**에서 여러 구절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인간 **예수**께서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마음 속에 되풀이했는데, 현재 **시편** 20편, 21편 그리고 22편으로 알려진 내

jeering crowd had experienced the birth of faith within his soul and had appealed to the mercy of Jesus, he would have been received with the same loving consideration that was displayed toward the believing brigand.

187:4.7 (2009.6) Just after the repentant thief heard the Master's promise that they should sometime meet in Paradise, John returned from the city, bringing with him his mother and a company of almost a dozen women believers. John took up his position near Mary the mother of Jesus, supporting her. Her son Jude stood on the other side. As Jesus looked down upon this scene, it was noontide, and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your son!" And speaking to John, he said, "My son, behold your mother!" And then he addressed them both, saying, "I desire that you depart from this place." And so John and Jude led Mary away from Golgotha. John took the mother of Jesus to the place where he tarried in Jerusalem and then hastened back to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After the Passover Mary returned to Bethsaida, where she lived at John's home for the rest of her natural life. Mary did not live quite one year after the death of Jesus.

187:4.8 (2010.1) After Mary left, the other women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and remained in attendance upon Jesus until he expired on the cross, and they were yet standing by when the body of the Master was taken down for burial.

5. LAST HOUR ON THE CROSS

187:5.1 (2010.2) Although it was early in the season for such a phenomenon, shortly after twelve o'clock the sky darkened by reason of the fine sand in the air. The people of Jerusalem knew that this meant the coming of one of those hot-wind sandstorms from the Arabian desert. Before one o'clock the sky was so dark the sun was hid, and the remainder of the crowd hastened back to the city. When the Master gave up his life shortly after this hour, less than thirty people were present, only the thirteen Roman soldiers and a group of about fifteen believers. These believers were all women except two, Jude, Jesus' brother, and John Zebedee, who returned to the scene just before the Master expired.

187:5.2 (2010.3) Shortly after one o'clock, amidst the increasing darkness of the fierce sandstorm, Jesus began to fail in human consciousness. His last words of mercy, forgiveness, and admonition had been spoken. His last wish — concerning the care of his mother — had been expressed. During this hour of approaching death the human mind of Jesus resorted to the repetition of many passages in the Hebrew scriptures, particularly the Psalms. The last conscious thought of the human Jesus was concerned with the repetition in his mind of a

용이다. 입술을 움직이기는 했지만, 너무 쇠약했으므로 이 구절을 소리 내어 말하지 못했고, 완전하게 기억하는 구절을 마음 속에 떠올렸다. 그 가운데 몇 마디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기름 부은 자를 **주**께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나의 모든 대적에게 당신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구절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음에 대해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지금 **아버지** 뜻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다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여러 **성서** 구절을 기억했을 뿐이고, 그것들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이 포함됐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 말함으로써 우연히 들린, 세 구절 가운데 하나였다.

필사자 **예수**께서 친구들에게 한 마지막 요청은, 한 시 반쯤 됐을 때,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고 한 말씀이었으며, 당시에 흔히 식초라고 불리는 신 포도주를 똑같은 스펀지에 적셔서, 바로 그 지휘관이 그의 입술을 적시게 했다.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병사들과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 여전히 옆에서 있었다. 병사들은 날카로운 모래 바람을 피하려고 십자가 곁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붕처럼 돼있는 바위 밑에서 지켜봤다.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세베대**, **주님**의 형제 **유다**와 자매 **룻**,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때 **세포리**에 있었던 **리브가**가 있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소리친 때는 세 시 직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한 후에 고개를 숙였고, 악전고투하던 생명이 끊어졌다. **예수**께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자였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답게 죽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고, 비참한 시간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었다. 자신이 택한 사도들의 안전을 도모한 후에, 불명예스런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폭력을 현명하게 제지했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필사자 실존이 끝나는 순간까지 곁에 있도록 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잔인한 **산헤드린**에게 나타냈고, **빌라도**에게는 **하**

portion of the Book of Psalms now known as the twentieth, twenty-first, and twenty-second Psalms. While his lips would often move, he was too weak to utter the words as these passages, which he so well knew by heart, would pass through his mind. Only a few times did those standing by catch some utterance, such as, “I know the Lord will save his anointed,” “Your hand shall find out all my enemies,” and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Jesus did not for one moment entertain the slightest doubt that he had lived in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and he never doubted that he was now laying down his life in the flesh in accordance with his Father’s will. He did not feel that the Father had forsaken him; he was merely reciting in his vanishing consciousness many Scriptures, among them this twenty-second Psalm, which begins with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nd this happened to be one of the three passages which were spoken with sufficient clearness to be heard by those standing by.

187:5.3 (2010.4) The last request which the mortal Jesus made of his fellows was about half past one o’clock when, a second time, he said, “I thirst,” and the same captain of the guard again moistened his lips with the same sponge wet in the sour wine, in those days commonly called vinegar.

187:5.4 (2010.5) The sandstorm grew in intensity and the heavens increasingly darkened. Still the soldiers and the small group of believers stood by. The soldiers crouched near the cross, huddled togeth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cutting sand. The mother of John and others watched from a distance where they were somewhat sheltered by an overhanging rock. When the Master finally breathed his last, there were present at the foot of his cross John Zebedee, his brother Jude, his sister Ruth, Mary Magdalene, and Rebecca, onetime of Sepphoris.

187:5.5 (2011.1) It was just before three o’clock when Jesus, with a loud voice, cried out, “It i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life struggle. When the Roman centurion saw how Jesus died, he smote his breast and said: “This was indeed a righteous man; truly he must have been a Son of God.” And from that hour he began to believe in Jesus.

187:5.6 (2011.2) Jesus died royally — as he had lived. He freely admitted his kingship and remained master of the situation throughout the tragic day. He went willingly to his ignominious death, after he had provided for the safety of his chosen apostles. He wisely restrained Peter’s trouble-making violence and provided that John might be near him right up to the end of his mortal existence. He revealed his true nature to the murderous

나님의 아들로서 주권적 권세의 근원을 상기시켰다. 가로 들보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출발했으며, 필사자 획득물에 속하는 자신의 영을 **낙원 아버지**에게 위탁함으로써, 애정이 깃든 증여를 마쳤다. 그런 삶을 마치면서--곧 그런 죽음에 즈음하여--**주님**은 정말로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었다.

이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으므로, **유대인**은 이 시체들을 **골고다**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죄수를 묶는 구덩이로 해가 지기 전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세 명의 병사를 보내서 **예수**와 두 강도를 죽이고 다리를 꺾게 했다.

이 병사들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두 강도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아무튼,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병사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심지어 이틀 또는 삼일 동안 질질 끌며 살아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극심한 감정적 고뇌와 참예한 영적 고통으로 인해, 다섯 시간 반이 약간 못돼서 육신을 입은 필사자 생애가 끝났다.

6. 십자가형 이후

모래 폭풍으로 어두워진 가운데, 세 시 반쯤 됐을 때,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죽음을 알리는 심부름꾼들을 마지막으로 내보냈다. 그는 마지막 심부름꾼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머물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유다**를 시켜서 여자들을 **엘리아 마가**의 집으로 보냈으며, **안식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다. **요한** 자신은, 이때 **로마** 지휘관과 친해졌기 때문에,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는 명령을 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골고다**에 남아 있었다.

방대한 한 우주에 비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 우주의 무수한 지성체들은, 인간으로 육신화 된 사랑하는 **주권자**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끔찍한 장면에 몸서리쳤으며; 필사자의 냉담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인해 기절할 정도였다.

Sanhedrin and reminded Pilate of the source of his sovereign authority as a Son of God. He started out to Golgotha bearing his own crossbeam and finished up his loving bestowal by handing over his spirit of mortal acquirement to the Paradise Father. After such a life — and at such a death — the Master could truly say, “It is finished.”

187:5.7 (2011.3) Because this was the preparation day for both the Passover and the Sabbath, the Jews did not want these bodies to be exposed on Golgotha. Therefore they went before Pilate asking that the legs of these three men be broken, that they be dispatched, so that they could be taken down from their crosses and cast into the criminal burial pits before sundown. When Pilate heard this request, he forthwith sent three soldiers to break the legs and dispatch Jesus and the two brigands.

187:5.8 (2011.4) When these soldiers arrived at Golgotha, they did accordingly to the two thieves, but they found Jesus already dead, much to their surprise. However, in order to make sure of his death, one of the soldiers pierced his left side with his spear. Though it was common for the victims of crucifixion to linger alive upon the cross for even two or three days, the overwhelming emotional agony and the acute spiritual anguish of Jesus brought an end to his mortal life in the flesh in a little less than five and one-half hours.

6. AFTER THE CRUCIFIXION

187:6.1 (2011.5)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of the sandstorm,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David Zebedee sent out the last of the messengers carrying the news of the Master's death. The last of his runners he dispatched to the home of Martha and Mary in Bethany, where he supposed the mother of Jesus stopped with the rest of her family.

187:6.2 (2011.6) After the death of the Master, John sent the women, in charge of Jude,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tarried over the Sabbath day. John himself, being well known by this time to the Roman centurion, remained at Golgotha until Joseph and Nicodemus arrived on the scene with an order from Pilate authorizing them to take possession of the body of Jesus.

187:6.3 (2011.7) Thus ended a day of tragedy and sorrow for a vast universe whose myriads of intelligences had shuddered at the shocking spectacle of the crucifixion of the human incarnation of their beloved Sovereign; they were stunned by this exhibition of mortal callousness and human perversity.

제 188편. 무덤에 있던 시간

⇨ 187

유랜시아 책

189 ⇨

IV 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제 188편
무덤에 있던 시간

섹션

소개

1. 예수를 매장함
2. 무덤을 지킴
3. 안식일 동안
4. 십자가에 못박힌 죽음의 의미
5. 십자가의 교훈

소개

예수의 필사자 신체가 **요셉**의 무덤에 놓여있었던 하루 반나절, 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기간은, **미가엘**이 이 땅에서 보낸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을 매장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지만, 금요일 오후 세 시부터 일요일 새벽 세 시까지, 약 서른여섯 시간 동안 정말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에 관해, 믿을만한 정보를 많이 제시할 수 없다. **주님**의 생애 중에서 이 기간은, **로마** 군인이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직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돌아가신 후 약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두 강도를 죽이는 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그의 시신을 더 빨리 끌어내렸을 것이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시신을 성 남쪽에 있는 **게헨나**라는 넓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계획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했다면, **주님**의 시신은 맹수들에게 뜯겼을 것이다.

한편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적절히 장사지낼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

PAPER 188

THE TIME OF THE TOMB

SECTIONS

Introduction

1. The Burial of Jesus
2. Safeguarding the Tomb
3. During the Sabbath Day
4.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5. Lessons from the Cross

INTRODUCTION

188:0.1 (2012.1) THE day and a half that Jesus' mortal body lay in the tomb of Joseph, the period between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is a chapter in the earth career of Michael which is little known to us. We can narrate the burial of the Son of Man and put in this record the events associated with his resurrection, but we cannot supply much information of an authentic nature about what really transpired during this epoch of about thirty-six hours, from three o'clock Friday afternoon to three o'clock Sunday morning. This period in the Master's career began shortly before he was taken down from the cross by the Roman soldiers. He hung upon the cross about one hour after his death. He would have been taken down sooner but for the delay in dispatching the two brigands.

188:0.2 (2012.2) The rulers of the Jews had planned to have Jesus' body thrown in the open burial pits of Gehenna, south of the city; it was the custom thus to dispose of the victims of crucifixion. If this plan had been followed, the body of the Master would have been exposed to the wild beasts.

188:0.3 (2012.3) In the meantime, Joseph of Arimathea, accompanied by Nicodemus, had gone to Pilate and asked that the body of Jesus be turned over to them for proper burial. It was not

에 처형된 사람의 친구들이, 그런 시체를 소유하는 특권을 위해 **로마** 권세자들에게 뇌물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요셉**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빌라도**에게 갔으며, **예수**의 시신을 사유{私有} 매장지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요청을 듣자, 그는 **요셉**이 **골고다**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즉시 완전하게 소유하도록 한다는 명령서에 바로 서명했다. 그동안, 모래 폭풍이 현저히 감소했고, 강도들의 시체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넓은 공공 매장지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한 무리가 **골고다**를 향해 떠났다.

1. 예수를 매장함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병사들과, 죄수를 매장하는 구덩이로 그의 시신을 옮겨가는 일을 **예수**의 추종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감시하고 있는 **산헤드린** 대표자들을 발견했다. **요셉**이 **주님**의 시신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서를 백부장에게 제시하자, **유대인**은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들이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맹렬하게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행동에 옮기려 하자, 백부장은 병사들 네 명에게 자기 옆으로 오도록 명령했고, 그들은 땅에 눕혀있는 **주님**의 시신 양쪽에 칼을 빼들고 섰다. 명령을 받은 다른 병사들이 성난 **유대인**을 뒤로 물리치는 동안, 백부장은 두 강도의 시체를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다. 질서가 회복된 후에, 백부장은 **빌라도**가 보낸 명령서를 **유대인**에게 읽어주고, 옆으로 가서 **요셉**에게 말했다: “이 시신은 당신의 소유이니 소견대로 하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병사들과 함께 지켜주겠소.”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유대인**의 무덤에 묻힐 수 없었으며; 그런 절차를 금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법을 알았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요셉**이 새로 만든 가족묘에 **예수**를 묻기로 결정했었으며, 그 묘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 건너편, **골고다**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고, 그들은 **주님**을 거기에 눕히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요셉**은 정말로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거의 믿지 않았다. 전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비밀리에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혐의회를 그만두기 전에도, **산헤드린** 회원 동료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날부터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를 가장 과감하게 전하는 제자가 됐다.

네 시 반쯤에,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골**

uncommon for friends of crucified persons to offer bribes to the Roman authorities for the privilege of gaining possession of such bodies. Joseph went before Pilate with a large sum of money, in case it became necessary to pay for permission to remove Jesus' body to a private burial tomb. But Pilate would not take money for this. When he heard the request, he quickly signed the order which authorized Joseph to proceed to Golgotha and take immediate and full possession of the Master's body. In the meantime, the sandstorm having considerably abated, a group of Jews representing the Sanhedrin had gone out to Golgotha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Jesus' body accompanied those of the brigands to the open public burial pits.

1. THE BURIAL OF JESUS

188:1.1 (2012:4) When Joseph and Nicodemus arrived at Golgotha, they found the soldiers taking Jesus down from the cros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anhedrin standing by to see that none of Jesus' followers prevented his body from going to the criminal burial pits. When Joseph presented Pilate's order for the Master's body to the centurion, the Jews raised a tumult and clamored for its possession. In their raving they sought violently to take possession of the body, and when they did this, the centurion ordered four of his soldiers to his side, and with drawn swords they stood astride the Master's body as it lay there on the ground. The centurion ordered the other soldiers to leave the two thieves while they drove back this angry mob of infuriated Jews. When order had been restored, the centurion read the permit from Pilate to the Jews and, stepping aside, said to Joseph: "This body is yours to do with as you see fit. I and my soldiers will stand by to see that no man interferes."

188:1.2 (2013:1) A crucified person could not be buried in a Jewish cemetery; there was a strict law against such a procedure. Joseph and Nicodemus knew this law, and on the way out to Golgotha they had decided to bury Jesus in Joseph's new family tomb, hewn out of solid rock, located a short distance north of Golgotha and across the road leading to Samaria. No one had ever lain in this tomb, and they thought it appropriate that the Master should rest there. Joseph really believed that Jesus would rise from the dead, but Nicodemus was very doubtful. These former members of the Sanhedrin had kept their faith in Jesus more or less of a secret, although their fellow Sanhedrists had long suspected them, even before they withdrew from the council. From now on they were the most outspoken disciples of Jesus in all Jerusalem.

188:1.3 (2013:2) At about half past four o'clock the

고다를 출발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요셉**의 무덤으로 갔다. 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으며, 지켜보고 있던 충실한 **갈릴리**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예수**의 시신을 운반한 사람은: **요셉**, **니고데모**, **요한**, 및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무덤 안으로 운반했으며, 사방 10피트 정도 되는 묘실(墓室) 안에서, 급히 장사지낼 준비를 했다. **유대인**은 시신을 정말로 땅에 묻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그것을 약품으로 처리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몰약과 향료를 가져왔고, 이제 이 액체를 적신 헝겊으로 시신을 싸다. 약품으로 처리하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몸을 세마포로 감았으며, 무덤 안에 있는 선반 위에 경건하게 놓았다.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후에,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해서 무덤 입구에 돌로 된 문을 굴리는 일을 돕게 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은 강도들의 시체를 **게헨나**로 옮기기 위해 출발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서둘러 **예수**를 장사지냈다. 남자들은 서둘러 성으로 돌아갔지만, 여자들은 아주 캄캄할 때까지도 무덤 곁에 있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여자들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어디 안치되는지를 보기 위해,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여자들은 **예수**를 장사지낼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으며,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향료와 기름을 준비하여, 일요일 아침에 **예수**의 시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머물렀던 여자들은: **마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마르다**, 그리고 **세포리**의 **리브**가였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정말로 믿거나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2. 무덤을 지키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리라는 그의 약속에 대해 **예수**의 추종자들은 무심했던 반면, 적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사장들, **바리새인**, 및 **사두개**

burial procession of Jesus of Nazareth started from Golgotha for Joseph's tomb across the way. The body was wrapped in a linen sheet as the four men carried it, followed by the faithful women watchers from Galilee. The mortals who bore the material body of Jesus to the tomb were: Joseph, Nicodemus, John, and the Roman centurion.

188:1.4 (2013.3) They carried the body into the tomb, a chamber about ten feet square, where they hurriedly prepared it for burial. The Jews did not really bury their dead; they actually embalmed them. Joseph and Nicodemus had brought with them large quantities of myrrh and aloes, and they now wrapped the body with bandages saturated with these solutions. When the embalming was completed, they tied a napkin about the face, wrapped the body in a linen sheet, and reverently placed it on a shelf in the tomb.

188:1.5 (2013.4) After placing the body in the tomb, the centurion signaled for his soldiers to help roll the doorstone up before the entrance to the tomb. The soldiers then departed for Gehenna with the bodies of the thieves while the others returned to Jerusalem, in sorrow, to observe the Passover feast according to the laws of Moses.

188:1.6 (2013.5) There was considerable hurry and haste about the burial of Jesus because this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drawing on apace. The men hurried back to the city, but the women lingered near the tomb until it was very dark.

188:1.7 (2013.6) While all this was going on, the women were hiding near at hand so that they saw it all and observed where the Master had been laid. They thus secreted themselves because it was not permissible for women to associate with men at such a time. These women did not think Jesus had been properly prepared for burial, and they agreed among themselves to go back to the home of Joseph, rest over the Sabbath, make ready spices and ointments, and return on Sunday morning properly to prepare the Master's body for the death rest. The women who thus tarried by the tomb on this Friday evening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wife of Clopas, Martha another sister of Jesus' mother, and Rebecca of Sepphoris.

188:1.8 (2013.7) Aside from David Zebedee and Joseph of Arimathea, very few of Jesus' disciples really believed or understood that he was due to arise from the tomb on the third day.

2. SAFEGUARDING THE TOMB

188:2.1 (2014.1) If Jesus' followers were unmindful of his promise to rise from the grave on the third day, his enemies were not. The chief priests, Pharisees, and Sadducees recalled that they had

인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이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자정 무렵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였고, 거기서 그들은,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염려하면서 의논했다. 이 회의는 **산헤드린**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예수**의 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무덤 앞에 **로마** 경비병을 세워 달라는 **산헤드린**의 공식 요청을 갖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끝났다. 이 위원회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각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그 셋째 날이 지날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야밤에 그를 훔쳐간 후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을 심히 염려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내버려둔다면, 이런 실수는 그를 살려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의 이런 요청을 들은 **빌라도**가 말했다: “열 명의 군인을 경비원으로 내주겠다. 너희가 가서 무덤을 지켜라.”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아침임에도, 자기네 경비원을 열 명 더 보강하여, 열 명의 **유대인** 경비원과 열 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요셉**의 무덤으로 행진했으며, 무덤 앞을 지키게 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굴려서 무덤 앞을 막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과 그 주변에 **빌라도**의 봉인(封印)을 붙여 놔다. 그리고 이 20명의 남자는 부활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지켰고, **유대인**이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줬다.

3. 안식일 동안

제자와 사도들은 **안식일** 동안 여전히 숨어 있었고, 온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거의 15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각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몰려 왔다. 이 날은 **유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였으며, 이 모든 순례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에 전하기 위해 성(城)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토요일 밤늦게, **요한 마가**는 열한 사도를 비밀리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도록 불렀고, 거기서 그들은 이틀 전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바로 그 다락방으로, 자정이 지나기 직전에 모두 모였다.

received reports of his saying he would rise from the dead.

188:2.2 (2014.2) This Friday night, after the Passover supper, about midnight a group of the Jewish leaders gathered at the home of Caiaphas, where they discussed their fears concerning the Master's assertions that he woul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This meeting ended with the appointment of a committee of Sanhedrists who were to visit Pilate early the next day, bearing the official request of the Sanhedrin that a Roman guard be stationed before Jesus' tomb to prevent his friends from tampering with it. Said the spokesman of this committee to Pilate: "Sir, we remember that this deceiver, Jesus of Nazareth, said, while he was yet alive,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again.' We have, therefore, come before you to request that you issue such orders as will make the sepulchre secure against his followers, at least until after the third day. We greatly fear lest his disciples come and steal him away by night and then proclaim to the people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If we should permit this to happen, this mistake would be far worse than to have allowed him to live."

188:2.3 (2014.3) When Pilate heard this request of the Sanhedrists, he said: "I will give you a guard of ten soldiers. Go your way and make the tomb secure." They went back to the temple, secured ten of their own guards, and then marched out to Joseph's tomb with these ten Jewish guards and ten Roman soldiers, even on this Sabbath morning, to set them as watchmen before the tomb. These men rolled yet another stone before the tomb and set the seal of Pilate on and around these stones, lest they be disturbed without their knowledge. And these twenty men remained on watch up to the hour of the resurrection, the Jews carrying them their food and drink.

3. DURING THE SABBATH DAY

188:3.1 (2014.4) Throughout this Sabbath day the disciples and the apostles remained in hiding, while all Jerusalem discusse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There were almost one and one-half million Jews present in Jerusalem at this time, hailing from all parts of the Roman Empire and from Mesopotamia.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Passover week, and all these pilgrims would be in the city to lear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o carry the report back to their homes.

188:3.2 (2014.5) Late Saturday night, John Mark summoned the eleven apostles secretly to come to the home of his father, where, just before midnight, they all assembled in the same upper chamber where they had partaken of the Last Supper with their Master two nights previously.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 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룻**과 **유다**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니고데모**의 집에 머물렀으며, 심부름꾼들에게 일요일 아침 거기에 모두 모이도록 이미 지시해 뒀다. **예수**의 시신에 약품을 더 바르기 위해 향료를 준비한 **갈릴리**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물렀다.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하루 반나절 동안, **나사렛 예수**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필사자들이 처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연스런 죽음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위탁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사고 조율사**가 오래 전에 인격화됐고, **예수**의 필사 존재에서 분리되어 실존했으므로,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그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에 결코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잠시 **아버지** 손에 위탁한 것은, 인간 체험의 기록이 댄션 세계로 옮겨지도록 대비하려고 필사 정신을 영화{靈化}시켰던, **조율사**의 초기 활동을 담은 영{靈}이력서였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의 체험 속에도, 그 구체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필사자의 영 본성, 또는 혼과 비슷한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의 견해일 뿐이다--**예수**께서 **아버지**께 무엇을 위탁했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육신 형체가 일요일 아침 세시경까지 **요셉**의 무덤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지만; 서른여섯 시간 동안 **예수**의 인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이 감히 우리끼리 이것을 설명해보려고 했다:

1. **미가엘**의 **창조주** 의식은, 물리적 육신화로 말미암은 연합된 필사 정신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방됐음이 틀림없다.

2. 우리가 알기에, **예수**께 있었던 **사고 조율사**는 이 기간에도 이 땅에 현존했으며, 소집된 천상의 무리들을 몸소 지휘했다.

3. 처음에는 그의 **사고 조율사**가 직접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뜻을 끊임없이 선택하여 효과를 미친 대로, 육신의 요구와 이상적 필사자 실존의 영적 조건 사이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조정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수립하여 얻은 영 정체성은, **낙원 아버지**의 보호에 위탁된 것이 틀림없다. 이 영 실체가 부활한 인격의 일부분으로서 돌아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왔다고 믿는다. 그

188:3.3 (2014.6) Mary the mother of Jesus, with Ruth and Jude, returned to Bethany to join their family this Saturday evening just before sunset. David Zebedee remained at the home of Nicodemus, where he had arranged for his messengers to assemble early Sunday morning. The women of Galilee, who prepared spices for the further embalming of Jesus' body, tarried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188:3.4 (2014.7) We are not able fully to explain just what happened to Jesus of Nazareth during this period of a day and a half when he was supposed to be resting in Joseph's new tomb. Apparently he died the same natural death on the cross as would any other mortal in the same circumstances. We heard him say,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We do no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such a statement inasmuch as his Thought Adjuster had long since been personalized and so maintained an existence apart from Jesus' mortal being. The Master's Personalized Adjuster could in no sense be affected by his physical death on the cross. That which Jesus put in the Father's hands for the time being must have been the spirit counterpart of the Adjuster's early work in spiritizing the mortal mind so as to provide for the transfer of the transcript of the human experience to the mansion worlds. There must have been some spiritual reality in the experience of Jesus which was analogous to the spirit nature, or soul, of the faith-growing mortals of the spheres. But this is merely our opinion — we do not really know what Jesus commended to his Father.

188:3.5 (2015.1) We know that the physical form of the Master rested there in Joseph's tomb until about three o'clock Sunday morning, but we are wholly uncertai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personality of Jesus during that period of thirty-six hours. We have sometimes dared to explain these things to ourselves somewhat as follows:

188:3.6 (2015.2) 1. The Creator consciousness of Michael must have been at large and wholly free from its associated mortal mind of the physical incarnation.

188:3.7 (2015.3) 2. The former Thought Adjuster of Jesus we know to have been present on earth during this period and in personal command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188:3.8 (2015.4) 3. The acquired spirit identity of the man of Nazareth which was built up during his lifetime in the flesh, first, by the direct efforts of his Thought Adjuster, and later, by his own perfect adjustment between the physical necessities and the spiritual requirements of the ideal mortal existence, as it was effected by his never-ceasing choice of the Father's will, must have been consigned to the custody of the Paradise Father. Whether or not this spirit reality returned to

러나 외부 공간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영역에서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과 관련하여, 밝혀지지 않은 운명을 가진 **완결성취 네바돈 단체**를 지휘하기 위해 나중에 양도되도록, **예수**의 혼_정체성이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고 여기는 존재들이 우주에 있다.

4. 우리는 **예수**의 인간 의식(意識), 즉 필사로서 가졌던 의식은, 이 서른여섯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예수**가 이 기간에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필사자 의식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명의 부활은 죽음의 정지 상태를 뒤이어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상이 **예수**께서 무덤에 있던 동안의 상태에 관해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전부다. 우리가 암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관련 사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사타니아에 있는 첫 맨션 세계 부활실의 거대한 뜰에서, **“미가엘 기념관”**으로 알려진 장엄한 물질적 모른시아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브리엘**의 봉인이 붙어있다. 이 기념관은 **미가엘**이 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과도기를 기념하여”라는 비문(碑文)이 붙어있다,

이 기간에, **가브리엘**이 주재하는 가운데, 100명으로 이뤄진 **살빙톤** 최고 협의회가 **유란시아**에서 실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거기에 있다. 또한 거기에는, 이 기간에 **네바돈**의 우주 상태에 관하여,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미가엘**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우리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살빙톤**에 있는 **임마누엘**과 **미가엘**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메시지가 교환됐음을 알고 있다.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눕혀있는 동안에 소집된, **예루셈**에 있는 **행성 왕자들**의 체계 협의회에서, **캘리개스차**의 자리에 어떤 인격체가 앉아 있었음을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

에덴시아의 기록에 의하면,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가 **유란시아**에 있었으며, 무덤에 있던 이 기간에 그가 **미가엘**로부터 지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견상 육체가 죽어있는 이 기간에, **예수**의 인격 전체가 잠자거나 무의식 중에 있지는 않았음을 암시하는, 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

become a part of the resurrected personality, we do not know, but we believe it did. But there are those in the universe who hold that this soul-identity of Jesus now reposes in the “bosom of the Father,” to be subsequently released for leadership of the Nebadon Corps of the Finality in their undisclosed destiny in connection with the uncreated universes of the unorganized realms of outer space.

188:3.9 (2015.5) 4. We think the human or mortal consciousness of Jesus slept during these thirty-six hour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human Jesus knew nothing of what transpired in the universe during this period. To the mortal consciousness there appeared no lapse of time; the resurrection of life followed the sleep of death as of the same instant.

188:3.10 (2015.6) And this is about all we can place on record regarding the status of Jesus during this period of the tomb. There are a number of correlated facts to which we can allude, although we are hardly competent to undertake their interpretation.

188:3.11 (2015.7) In the vast court of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first mansion world of Satania, there may now be observed a magnificent material-morontia structure known as the “Michael Memorial,” now bearing the seal of Gabriel. This memorial was created shortly after Michael departed from this world, and it bears this inscription: “In commemoration of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on Urantia.”

188:3.12 (2016.1) There are records extant which show that during this period the supreme council of Salvington, numbering one hundred, held an executive meeting on Urantia under the presidency of Gabriel. There are also records showing that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communicated with Michael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verse of Nebadon during this time.

188:3.13 (2016.2) We know that at least one message passed between Michael and Immanuel on Salvington while the Master’s body lay in the tomb.

188:3.14 (2016.3) There is good reason for believing that some personality sat in the seat of Caligastia in the system council of the Planetary Princes on Jerusem which convened while the body of Jesus rested in the tomb.

188:3.15 (2016.4) The records of Edentia indicate that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was on Urantia, and that he received instructions from Michael during this time of the tomb.

188:3.16 (2016.5) And there is much other evidence which suggests that not all of the personality of Jesus was asleep and unconscious during this time of apparent physical death.

4. 십자가에 못박힌 죽음의 의미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비록 필사적 사람의 종족 전체가 가져야 할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내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길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더라도; 비록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도를 가라앉히면서,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도 아니었더라도; 속죄와 화해라는 이 관념이 잘못 된 것임에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는 이웃 행성들에게,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은 필사자 생애 전 과정을 살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죽음은 끝날 수밖에 없는 연극{演劇}에서 마지막 장면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죽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미신적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희가 선의{善意}로 수고하는 동안, **주님**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중요성과 참된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사적 사람은 최고사기꾼들의 소유물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예수**께서는, 변절한 통치자들, 그리고 그런 구체의 타락한 왕자들의 결박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조상의 악행으로 인해 필사자 혼을 파멸시킬 만큼 우둔한 불공정을 마음에 품으신 적이 결코 없다. 또한 **주님**은, 인류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생 제물로서 죽은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기 전에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너희 동료 필사자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은 후로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를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묘사했다.

동물적 본성--곧 악을 행하려는 경향--은 유전적이겠지만,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죄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 개인이 **아버지** 뜻과 **아들**들의 법에 대항하는, 의식적{意識的}이고 고의적인 반역 행위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하나만의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도, 이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엄청나게 밝아진 것이 사실이며; 그의 죽음은, 필사자 육신이 죽은 후에 확실히 생존한다는 것을, 영원히 분명하게 밝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

4.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188:4.1 (2016.6) Although Jesus did not die this death on the cross to atone for the racial guilt of mortal man nor to provide some sort of effective approach to an otherwise offended and unforgiving God; even though the Son of Man did not offer himself as a sacrifice to appease the wrath of God and to open the way for sinful man to obtain salvation; notwithstanding that these ideas of atonement and propitiation are erroneous, nonetheless, there are significances attached to this death of Jesus on the cross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a fact that Urantia has become known among other neighboring inhabited planets as the “World of the Cross.”

188:4.2 (2016.7) Jesus desired to live a full mortal life in the flesh on Urantia. Death is, ordinarily, a part of life. Death is the last act in the mortal drama. In your well-meant efforts to escape the superstitious errors of the fals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the great mistake of failing to perceive the true significance and the genuine import of the Master's death.

188:4.3 (2016.8) Mortal man was never the property of the archdeceivers. Jesus did not die to ransom man from the clutch of the apostate rulers and fallen princes of the spheres. The Father in heaven never conceived of such crass injustice as damning a mortal soul because of the evil-doing of his ancestors. Neither was the Master's death on the cross a sacrifice which consisted in an effort to pay God a debt which the race of mankind had come to owe him.

188:4.4 (2016.9) Before Jesus lived on earth, you might possibly have been justified in believing in such a God, but not since the Master lived and died among your fellow mortals. Moses taught the dignity and justice of a Creator God; but Jesus portrayed the love and mercy of a heavenly Father.

188:4.5 (2016.10) The animal nature — the tendency toward evil-doing — may be hereditary, but sin is not transmitted from parent to child. Sin is the act of conscious and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Father's will and the Sons' laws by an individual will creature.

188:4.6 (2017.1) Jesus lived and died for a whole universe, not just for the races of this one world. While the mortals of the realms had salvation even before Jesus lived and died on Urantia, it is nevertheless a fact that his bestowal on this world greatly illuminated the way of salvation; his death did much to make forever plain the certainty of mortal survival after death in the flesh.

예수를 희생 제물, 몸값을 대신 치른 자, 또는 죄값을 대신 갚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구원(생존)의 길을 영원토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었으며, **네바돈** 우주에 속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필사자에게, 구원의 길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

너희가 진실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일단 파악하고 나면, **예수**께서 가르친 유일한 개념은, 모든 원시적 관념을 너희가 시종일관하게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시적 개념은, 마치 자기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탐지해서 적절하게 벌주는 것을 기뻐하는, 즉 자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면 잘못된 대가(代價)로 기꺼이 수난 당하게 하고 죽이기를 주로 기뻐하는, 성난 군주 또는 엄격하고 전능한 지배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속전과 죄 값이라는 모든 관념은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줬던 **하나님** 개념과 모순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신성한 본성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속죄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전체 개념은, 이기주의에서 유래하고 이기주의에 근거한다.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신자들의 가장 높은 형제관계 개념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쳤다.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이 얻는 것이다. 신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동료를 사랑하고자 하는 애타심이 솟아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한 장차의 형벌을 크게 염려하지도 않는다. 참된 신자는 오직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을 뿐이다.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그리고 바로잡아주려는 목적에서다. 그들은 화나서 벌주는 일이 없으며, 응징할 목적으로 혼내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공의만이 최고로 지배하는 우주의 완고하고 율법적인 군주이셨다면, 죄 지은 자와 죄 없는 수난자(受難者)를 바꾸는 어리석은 책략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예수의 죽음에서 위대한 점은, 인간 체험의 질을 높이고 구원의 길을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음을 맞으면서 보여줬던 당당한 태도, 그리고 비길 데 없는 기백이다.

죄값을 대신 갚은 속전이라는 이 전체 관념이 구원을 비실체화(非實體化)시켰으며, 그런 개념은 순전히 철학적이다. 인간의 구원은 실재이며, 피조물의 신앙으로 구원을 붙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인간의 체험 속으로 합병될 수 있는 두 가지 실체: 즉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상관되는,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진리에

188:4.7 (2017.2) Though it is hardly proper to speak of Jesus as a sacrificer, a ransom, or a redeemer, it is wholly correct to refer to him as a *savior*. He forever made the way of salvation (survival) more clear and certain; he did better and more surely show the way of salvation for all the mortals of all the worlds of the universe of Nebadon.

188:4.8 (2017.3) When once you grasp the idea of God as a true and loving Father, the only concept which Jesus ever taught, you must forthwith, in all consistency, utterly abandon all those primitive notions about God as an offended monarch, a stern and all-powerful ruler whose chief delight is to detect his subjects in wrongdoing and to see that they are adequately punished, unless some being almost equal to himself should volunteer to suffer for them, to die as a substitute and in their stead. The whole idea of ransom and atone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God as it was taught and exemplified by Jesus of Nazareth. The infinite love of God is not secondary to anything in the divine nature.

188:4.9 (2017.4) All this concept of atonement and sacrificial salvation is rooted and grounded in selfishness. Jesus taught that *service* to one's fellows is the highest concept of the brotherhood of spirit believers. Salvation should be taken for granted by those who believe in the fatherhood of God. The believer's chief concern should not be the selfish desire for personal salvation but rather the unselfish urge to love and, therefore, serve one's fellows even as Jesus loved and served mortal men.

188:4.10 (2017.5) Neither do genuine believers trouble themselves so much about the future punishment of sin. The real believer is only concerned about present separation from God. True, wise fathers may chasten their sons, but they do all this in love and for corrective purposes. They do not punish in anger, neither do they chastise in retribution.

188:4.11 (2017.6) Even if God were the stern and legal monarch of a universe in which justice ruled supreme, he certainly w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childish scheme of substituting an innocent sufferer for a guilty offender.

188:4.12 (2017.7) The great thing about the death of Jesus, as it is related to the enrichment of human experience and the enlargement of the way of salvation, is not the *fact* of his death but rather the superb manner and the matchless spirit in which he met death.

188:4.13 (2017.8) This entire idea of the ransom of the atonement places salvation upon a plane of unreality; such a concept is purely philosophic. Human salvation is *real*; it is based on two realities which may be grasped by the creature's faith and thereby become incorporated into individual human experience: the fact of the fatherhood of

기초한다. 아무튼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의 빚도 용서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God and its correlated truth, the brotherhood of man. It is true, after all, that you are to be “forgiven your debts, even as you forgive your debtors.”

5. 십자가의 교훈

참 목자는 자기 양떼 중에서 무가치한 양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게 묘사한다. 그 십자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가족 개념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다. 사랑, 즉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주 관계에서 가장 중심된 진리를 이룬다--악을 행하는 백성에게 고통주고 벌을 가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왕의 응보는 그렇지 않다.

죄인을 향한 **예수**의 태도는, 유죄 판결도 아니고 눈감아주는 것도 아니며, 영원한 구원, 사랑의 구원임을 십자가가 영구히 보여준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사람을 설득하여, 선하고 의로운 생존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로 구원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일깨울 만큼, 그토록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은 정말로 전염성이 있으며, 영원토록 창조성을 갖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켜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고 거룩한 사랑을 예증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공의보다--곧 단지 인위적인 옳고 그름보다--더 높은 특성의 의(義)를 드러냈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히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흡수하고 실제로 파괴해 버린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자비로 하는 용서를 완전히 초월한다. 자비는 악행에 대해 한편으로 죄의식을 주지만; 사랑은, 죄는 물론 죄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연약함을 영구히 파괴한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유란시아**에 전했다. 악에 대항하지 말고, 악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선(善)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예수**의 용서는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부터 구원함이다. 구원은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준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지도, 눈감아주지도 않으며; 미움을 파괴한다. **예수**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용서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갱생(更生)과 영원한 생존을 내포한다. 너희가 이 영원한 갱생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구속(救贖)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체로 타당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 사랑의 능력으로, 죄와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 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방시켰다. **예수**께서는, 그 자체로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는, 과거로부터의 구출을 묘사했다. 용서는 그렇게 구원을 제공한다.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일단 인간의 마음 속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면, 죄의 매력과 악(惡)의 능력을 영원히 없애버린다.

예수의 수난은 십자가형 사건만으로 제한되

5. LESSONS FROM THE CROSS

188:5.1 (2017.9) The cross of Jesus portrays the full measure of the supreme devotion of the true shepherd for even the unworthy members of his flock. It forever places all relations between God and man upon the family basis. God is the Father; man is his son. Love, the love of a father for his son, becomes the central truth in the universe relations of Creator and creature — not the justice of a king which seeks satisfaction in the sufferings and punishment of the evil-doing subject.

188:5.2 (2018.1) The cross forever shows that the attitude of Jesus toward sinners was neither condemnation nor condonation, but rather eternal and loving salvation. Jesus is truly a savior in the sense that his life and death do win men over to goodness and righteous survival. Jesus loves men so much that his love awakens the response of love in the human heart. Love is truly contagious and eternally creative. Jesus' death on the cross exemplifies a love which is sufficiently strong and divine to forgive sin and swallow up all evil-doing. Jesus disclosed to this world a higher quality of righteousness than justice — mere technical right and wrong. Divine love does not merely forgive wrongs; it absorbs and actually destroys them. The forgiveness of love utterly transcends the forgiveness of mercy. Mercy sets the guilt of evil-doing to one side; but love destroys forever the sin and all weakness resulting therefrom. Jesus brought a new method of living to Urantia. He taught us not to resist evil but to find through him a goodness which effectually destroys evil. The forgiveness of Jesus is not condonation; it is salvation from condemnation. Salvation does not slight wrongs; it *makes them right*. True love does not compromise nor condone hate; it destroys it. The love of Jesus is never satisfied with mere forgiveness. The Master's love implies rehabilitation, eternal survival. It is altogether proper to speak of salvation as redemption if you mean this eternal rehabilitation.

188:5.3 (2018.2) Jesus, by the power of his personal love for men, could break the hold of sin and evil. He thereby set men free to choose better ways of living. Jesus portrayed a deliverance from the past which in itself promised a triumph for the future. Forgiveness thus provided salvation. The beauty of divine love, once fully admitted to the human heart, forever destroys the charm of sin and the power of evil.

188:5.4 (2018.3) The sufferings of Jesus were not

지 않는다. 실제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되고 열정적인 필사자 실존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25년 이상 보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가 그의 사랑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표현이요, 그의 자비의 완벽한 계시라는 사실에 있다.

수백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도덕적 고투를 포기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단념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는, 수십조에 달하는 진보하는 피조물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다시 한 번 보고나서, 사람의 에타적 봉사에 헌신하면서 육신화 된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꾸준히 전진해 왔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이룩한 승리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의 태도의 기백 속에서 모두 요약됐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사랑의 헌신이 방대한 우주 전체에 파급됐으며;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이런 봉사를 위해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 받은 최초의 선생, 자신의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선생은, 그들이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다.

십자가는 동료 사람을 섬기기에 생명을 기꺼이 바친 한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최고의 호소력을 나타낸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예수**께서는 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사랑, 즉 이 세상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랑을 지녔다.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에서도,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장엄한 광경은, 필사자들을 감동시키는 동시에, 최상으로 헌신하도록 천사들을 자극해 왔다.

십자가는, 신성시되는 봉사, 즉 동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화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죄인들 대신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게 자신을 증여함으로써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 세상과 광대한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원한 신성시되는 상징이다.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에타적 봉사, 즉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할지라도 전심으로 돌보는, 봉사하면서 의로운 생명을 완전히 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위대한 상징의 바로 그 모습이,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confined to the crucifixion. In reality, Jesus of Nazareth spent upward of twenty-five years on the cross of a real and intense mortal existence. The real value of the cross consists in the fact that it was the supreme and final expression of his love, the completed revelation of his mercy.

188:5.5 (2018.4) On millions of inhabited worlds, tens of trillions of evolving creatures who may have been tempted to give up the moral struggle and abandon the good fight of faith, have taken one more look at Jesus on the cross and then have forged on ahead, inspired by the sight of God's laying down his incarnate life in devo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man.

188:5.6 (2018.5) The triumph of the death on the cross is all summed up in the spirit of Jesus' attitude toward those who assailed him. He made the cross an eternal symbol of the triumph of love over hate and the victory of truth over evil when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That devotion of love was contagious throughout a vast universe; the disciples caught it from their Master. The very first teacher of his gospel who was called upon to lay down his life in this service, said, as they stoned him to death,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188:5.7 (2018.6) The cross makes a supreme appeal to the best in man because it discloses one who wa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in the service of his fellow men. Greater love no man can have than this: that he would be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 and Jesus had such a love that he wa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enemies, a love greater than any which had hitherto been known on earth.

188:5.8 (2019.1) On other worlds, as well as on Urantia, this sublime spectacle of the death of the human Jesus on the cross of Golgotha has stirred the emotions of mortals, while it has aroused the highest devotion of the angels.

188:5.9 (2019.2) The cross is that high symbol of sacred service, the devotion of one's life to the welfare and salvation of one's fellows. The cross is not the symbol of the sacrifice of the innocent Son of God in the place of guilty sinners and in order to appease the wrath of an offended God, but it does stand forever, on earth and throughout a vast universe, as a sacred symbol of the good bestowing themselves upon the evil and thereby saving them by this very devotion of love. The cross does stand as the token of the highest form of unselfish service, the supreme devotion of the full bestowal of a righteous life in the service of wholehearted ministry, even in death, the death of the cross. And the very sight of this great symbol of the bestowal life of Jesus truly inspires all of us to want to go and do likewise.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예수**를, 분별력 있는 남녀라면, 사소한 고민거리나 순전히 허구적인 많은 불만은커녕, 인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에닥치더라도 도저히 다시는 불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승리에 찼으므로, 우리 모두는 기꺼이 둘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소년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장엄한 광경에 이르기까지, **미가엘**의 전체 증여 과정에는 끌어당기는 참된 능력이 있다.

너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바라볼 때, 원시인의 눈으로 보거나 후대의 야만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공의를 실행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냉혹한 **주권자**로 간주한다. 오히려 너희는,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필사자 인종들에게 바치는 증여 사명에 **예수**께서 쏟은 사랑과 헌신의 최종 증거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필사자 구체(球體)에서 사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이,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서 최고로 꽃피웠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그런 선물과 헌신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진해서 증여하시는 구원과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애정을 나타낸다. 십자가 사건에,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오직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택했고 피하기를 거부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께 감사할 수 없고 그가 이 땅에 증여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예수**께서 필사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은, 그런 사람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나 크기를 **창조주**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알기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아들**의 영속적 자비를 사람이 깨닫도록 자극하고, 이 보편적 진리를 전체 우주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188:5.10 (2019.3) When thinking men and women look upon Jesus as he offers up his life on the cross, they will hardly again permit themselves to complain at even the severest hardships of life, much less at petty harassments and their many purely fictitious grievances. His life was so glorious and his death so triumphant that we are all enticed to a willingness to share both. There is true drawing power in the whole bestowal of Michael, from the days of his youth to this overwhelming spectacle of his death on the cross.

188:5.11 (2019.4) Make sure, then, that when you view the cross as a revelation of God, you do not look with the eyes of the primitive man nor with the viewpoint of the later barbarian, both of whom regarded God as a relentless Sovereign of stern justice and rigid law-enforcement. Rather, make sure that you see in the cross the final manifestation of the love and devotion of Jesus to his life mission of bestowal upon the mortal races of his vast universe. See in the death of the Son of Man the climax of the unfolding of the Father's divine love for his sons of the mortal spheres. The cross thus portrays the devotion of willing affection and the bestowal of voluntary salvation upon those who are willing to receive such gifts and devotion. There was nothing in the cross which the Father required — only that which Jesus so willingly gave, and which he refused to avoid.

188:5.12 (2019.5) If man cannot otherwise appreciate Jesus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 bestowal on earth, he can at least comprehend the fellowship of his mortal sufferings. No man can ever fear that the Creator does not know the nature or extent of his temporal afflictions.

188:5.13 (2019.6) We know that the death on the cross was not to effect man's reconciliation to God but to stimulate man's *realization* of the Father's eternal love and his Son's unending mercy, and to broadcast these universal truths to a whole universe.

제 189편. 부활

⇨ 188

유란시아 책

190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89편

부활

섹션

소개

1. 모론시아 전환
2. 예수의 물질 신체
3. 섬리시대의 부활
4. 빈 무덤 발견
5.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PAPER 189

THE RESURREC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orontia Transit
2. The Material Body of Jesus
3.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4. Discovery of the Empty Tomb
5. Peter and John at the Tomb

소개

금요일 오후에, **예수**를 장사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바돈**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유란시아**에 나타났으며, 잠자는 의지 피조물의 부활을 관장하는 협의회를 소집했고, **예수**의 부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인 지방우주 아들들은 **미가엘**이 창조한 존재였고, 이 일은 그들 본연의 책임이었으며, **가브리엘**이 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부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미가엘**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취할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한, **가브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천사장, **생명 운반자**, 그리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모론시아 창조에 협동하는 다양한 동역자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의 회의가 끝난 직후에, 그때 **유란시아**에 집합된 천상의 무리를 직접 지휘하던,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가, 염려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그가 필사자의 죽음은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체험했지만; 우주의 **주권자**로서는 여전히 살

INTRODUCTION

189:0.1 (2020.1) SOON after the burial of Jesus on Friday afternoon, the chief of the archangels of Nebadon, then present on Urantia, summoned his council of the resurrection of sleeping will creatures and entered upon the consideration of a possible technique for the restoration of Jesus. These assembled sons of the local universe, the creatures of Michael, did this on their own responsibility; Gabriel had not assembled them. By midnight they had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creature could do nothing to facilitate the resurrection of the Creator. They were disposed to accept the advice of Gabriel, who instructed them that, since Michael had “laid down his life of his own free will, he also had power to take it up again in accordance with his own determination.” Shortly after the adjournment of this council of the archangels, the Life Carriers, and their various associates in the work of creature rehabilitation and morontia creation,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being in personal command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then on Urantia, spoke these words to the anxious waiting watchers:

189:0.2 (2020.2) “Not one of you can do ought to assist your Creator-father in the return to life. As a mortal of the realm he has experienced mortal death; as the Sovereign of a universe he still lives. That

아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생애로부터 모른시아 생애까지 필사자로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영 전환은, 내가 그의 인격에서 분리되어 너희의 임시 지휘자가 됐을 때 이미 완료됐다.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는, 필사 피조물이 갖는 전체 체험, 즉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런 죽음과 모른시아 부활을 지나서, 참된 영 실존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기로 선택했다. 이 체험 가운데 어떤 국면을 너희가 곧 관찰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통상적으로 피조물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창조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이 창조한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든지 자신을 증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관찰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낙원 아버지**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이런 능력을 지녔고, 나는 내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지 잘 안다.”

인격화된 조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그들은 모두, 위로는 **가브리엘**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체류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봤으며;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우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인지했으나; 그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어날 일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1. 모른시아 전환

일요일 아침 두 시 45분에, **낙원**의 미확인된 일곱 인격체로 구성된 **낙원** 육신화{肉身化} 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무덤 근처에 자리 잡았다. 세 시 10분 전에, 혼합된 물질 활동 및 모른시아 활동으로 말미암은 심한 진동이 **요셉**의 새 무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기 30년 4월 9일, 이 일요일 아침 세 시 2분에, 모른시아 형체로 부활된 **나사렛 예수**의 인격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다.

부활한 **예수**께서, 매장됐던 무덤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이 땅에서 약 36년 동안 그 속에서 살고 활동했던 육신 신체는, 금요일 오후에 **요셉**과 그 동역자들이 눕혀놓았을 때와 똑같이, 세마포에 싸여 묘실에 안치된 그대로 여전히 누워 있었다. 또한 무덤 입구를 막은 바위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있었으며; **빌라도**의 봉인도 여전히 원상 대로였고; 병사들도 아직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로마** 경비대는 자정 무렵에 교대했다. 무덤을 지키던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가 지키고 있는 대상이 이미 살아나서 새로운 고귀한 실존 형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감시하고 있는 시신은, **예수**의 해방되고 부활된 모른시아 인격체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버려진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됐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which you observe is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from life in the flesh to life in the morontia. The spirit transit of this Jesus was completed at the time I separated myself from his personality and became your temporary director. Your Creator-father has elected to pass through the whole of the experience of his mortal creatures, from birth on the material worlds, on through natural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the morontia, into the status of true spirit existence. A certain phase of this experience you are about to observe, but you may not participate in it. Those things which you ordinarily do for the creature, you may not do for the Creator. A Creator Son has within himself the power to bestow himself in the likeness of any of his created sons; he has within himself the power to lay down his observable life and to take it up again; and he has this power because of the direct command of the Paradise Father, and I know whereof I speak.”

189:0.3 (2020.3) When they heard the Personalized Adjuster so speak, they all assumed the attitude of anxious expectancy, from Gabriel down to the most humble cherubim. They saw the mortal body of Jesus in the tomb; they detected evidences of the universe activity of their beloved Sovereign; and not understanding such phenomena, they waited patiently for developments.

1. THE MORONTIA TRANSIT

189:1.1 (2020.4) At two forty-five Sunday morning, the Paradise incarnation commission, consisting of seven unidentified Paradise personalities, arrived on the scene and immediately deployed themselves about the tomb. At ten minutes before three, intense vibrations of commingled material and morontia activities began to issue from Joseph's new tomb, and at two minutes past three o'clock, this Sunday morning, April 9, A.D. 30, the resurrected morontia form and personality of Jesus of Nazareth came forth from the tomb.

189:1.2 (2021.1) After the resurrected Jesus emerged from his burial tomb, the body of flesh in which he had lived and wrought on earth for almost thirty-six years was still lying there in the sepulchre niche, undisturbed and wrapped in the linen sheet, just as it had been laid to rest by Joseph and his associates on Friday afternoon. Neither was the stone before the entrance of the tomb in any way disturbed; the seal of Pilate was still unbroken; the soldiers were still on guard. The temple guards had been on continuous duty; the Roman guard had been changed at midnight. None of these watchers suspected that the object of their vigil had risen to a new and higher form of existence, and that the body which they were guarding was now a discarded outer covering which had no further connection with the delivered and

모든 개인적인 면에서, 물질은 모론시아의 뼈대이며, 이 두 가지는 영 실체를 지탱하는 반사된 그림자라는 것을, 인류는 잘 감지하지 못한다. 너희는 언제쯤에나, 시간은 영원성이 움직이는 형상이요, 공간은 **낙원** 실체들이 빨리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여기게 되겠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인격체도,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금요일에 이 세상 필사자로서 생명을 버렸으며; 일요일 아침에 **노라티아덱**에 속한 **사타니아** 체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 생명을 다시 취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그 시간 무렵에, 우리가 증거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시신이 수의(壽衣)에 싸인 채 놓여있는 **요셉**의 새 무덤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이런 필사자 전환, 즉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현상을 기록할 수 있다.

모론시아 존재로서 깨어나는 이 일에, 어떤 지방우주 피조물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낙원**의 일곱 인격체가 무덤을 둘러싼 것을 알지만, **주님**을 깨우는 일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무덤 바로 위에서 **가브리엘** 옆에 나타나자마자, **낙원**에서 온 일곱 인격체는 즉시 **우버사**로 떠나라는 의미의 신호를 받았다.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영구히 정립해 두기로 하자:

1. 그의 물질적 몸, 즉 육체는 부활된 인격의 일부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시신은 묘실 안에 조금도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고, 매장된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2. 그는 무덤으로부터 영 또는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나오지 않았으며; **유란시아**에 필사자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하기 전과 같은 **창조주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3. **요셉**의 이 무덤으로부터 나온 그는, 이 **사타니아** 지방 체계에 있는 첫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부활된, 모론시아 상승 존재로서 나오는 모론시아 인격체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1_번 맨소니아 부활실들이 있는 넓은 뜰 중앙에 **미가엘** 기념관이 현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주님**이 **유란시아**에서 부활한 것은, 체계의 이 첫 맨션 세계에서 적용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resurrected morontia personality of Jesus.

189:1.3 (2021.2) Mankind is slow to perceive that, in all that is personal, matter is the skeleton of morontia, and that both are the reflected shadow of enduring spirit reality. How long before you will regard time as the moving image of eternity and space as the fleeting shadow of Paradise realities?

189:1.4 (2021.3) As far as we can judge, no creature of this universe nor any personality from another universe had anything to do with this morontia resurrection of Jesus of Nazareth. On Friday he laid down his life as a mortal of the realm; on Sunday morning he took it up again as a morontia being of the system of Satania in Norlatiadek. There is much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which we do not understand. But we know that it occurred as we have stated and at about the time indicated. We can also record that all known phenomena associated with this mortal transit, or morontia resurrection, occurred right there in Joseph's new tomb, where the mortal material remains of Jesus lay wrapped in burial cloths.

189:1.5 (2021.4) We know that no creature of the local universe participated in this morontia awakening. We perceived the seven personalities of Paradise surround the tomb, but we did not see them do anything in connection with the Master's awakening. Just as soon as Jesus appeared beside Gabriel, just above the tomb, the seven personalities from Paradise signalized their intention of immediate departure for Uversa.

189:1.6 (2021.5) Let us forever clarify the concep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by making the following statements:

189:1.7 (2021.6) 1. His material or physical body was not a part of the resurrected personality. When Jesus came forth from the tomb, his body of flesh remained undisturbed in the sepulchre. He emerged from the burial tomb without moving the stones before the entrance and without disturbing the seals of Pilate.

189:1.8 (2021.7) 2. He did not emerge from the tomb as a spirit nor as Michael of Nebadon; he did not appear in the form of the Creator Sovereign, such as he had had before his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Urantia.

189:1.9 (2021.8) 3. He did come forth from this tomb of Joseph in the very likeness of the morontia personalities of those who, as resurrected morontia ascendant beings, emerge from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first mansion world of this local system of Satania. And the presence of the Michael memorial in the center of the vast court of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number one leads us to conjecture that the Master's resurrection on Urantia was in some way fostered on this, the first of the system mansion worlds.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가브리엘**을 환영하고,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우주 직무에 대한 행정 지시사항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으며, 이어서 형제로서의 인사를 **임마누엘**에게 전하라고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필사자 전환에 대해 **태고 항존자**의 확인이 있었는지,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질문했으며; **예수**께서는, 피조물에 속한 자들로서 **창조주**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인, 일곱 맨션 세계로부터 집합된 모론시아 무리에게로 돌아선 후에, 필사자 이후 생애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론시아 **예수**께서 말씀했다: “육체를 입은 내 생애를 마쳤지만, 나는 상승하는 내 피조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낙원**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을 좀 더 계시할 수 있도록, 과도기 형체로서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으려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인격화된 조울사**에게 신호했고, 부활을 지켜보기 위해 **유란시아**에 모였던 모든 우주 지성체는 각자의 우주 임지를 향해 즉시 떠났다.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잠시 **유란시아**에 살기로 선택한 피조물로서의 삶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모론시아 수준의 접촉을 시작했다. 이 모론시아 세계로 입문{入門}하는 데는 이 세상 시간으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됐고, 육체 속에 있을 당시에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가 부활한 증거라고 여길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빈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상히 여기면서 살펴보는 그들과 대화하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두 번 중단됐다.

이제 **예수**의 필사자 전환{轉換}이--곧 **사람의 아들**의 모론시아 부활이-- 완료됐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간 인격체로서, 잠시 동안 **주님**의 체험이 시작됐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으며; 어떤 인격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론시아 **예수**로서 살게 됐으며, 이런 모론시아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물질 육신 신체는 변함없이 무덤에 놓여 있었다. 병사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으며, 바위에 붙어 있는 총독의 봉인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채였다.

2. 예수의 물질 신체

세 시 10분에, 부활한 **예수**께서,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 세계에서 소집된 모론시아 인격체들과 교제할 때, 천사장들--곧 부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필사자 신체에 관해 요청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우리 주권자이신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 속하는 모론시아 부활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그의 시신을 즉시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비물질화시

189:1.10 (2022.1) The first act of Jesus on arising from the tomb was to greet Gabriel and instruct him to continue in executive charge of universe affairs under Immanuel, and then he directed the chief of the Melchizedeks to convey his brotherly greetings to Immanuel. He thereupon asked the Most High of Edentia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s to his mortal transit; and turning to the assembled morontia groups of the seven mansion worlds, here gathered together to greet and welcome their Creator as a creature of their order, Jesus spoke the first words of the postmortal career. Said the morontia Jesus: “Having finished my life in the flesh, I would tarry here for a short time in transition form that I may more fully know the life of my ascendant creatures and further reveal the will of my Father in Paradise.”

189:1.11 (2022.2) After Jesus had spoken, he signaled to the Personalized Adjuster, and all universe intelligences who had been assembled on Urantia to witness the resurrection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their respective universe assignments.

189:1.12 (2022.3) Jesus now began the contacts of the morontia level, being introduced, as a creature, to the requirements of the life he had chosen to live for a short time on Urantia. This initiation into the morontia world required more than an hour of earth time and was twice interrupted by his desire to communicate with his former associates in the flesh as they came out from Jerusalem wondering to peer into the empty tomb to discover what they considered evidence of his resurrection.

189:1.13 (2022.4) Now is the mortal transit of Jesus —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the Son of Man — completed. The transitory experience of the Master as a personality midway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has begun. And he has done all this through power inherent within himself; no personality has rendered him any assistance. He now lives as Jesus of morontia, and as he begins this morontia life, the material body of his flesh lies there undisturbed in the tomb. The soldiers are still on guard, and the seal of the governor about the rocks has not yet been broken.

2. THE MATERIAL BODY OF JESUS

189:2.1 (2022.5) At ten minutes past three o'clock, as the resurrected Jesus fraternized with the assembled morontia personalities from the seven mansion worlds of Satania, the chief of archangels — the angels of the resurrection — approached Gabriel and asked for the mortal body of Jesus. Said the chief of the archangels: “We may not participate in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the bestowal experience of Michael our sovereign, but

키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다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께서 **유란시아**에 사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무리는, 우주의 **창조주**시며 **유지자**이신 그분의 인간 형체가 서서히 부식돼 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온 **네바돈**의 거룩한 인격체들을 대표해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신체에 대한 처리를 내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즉각 분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의 상급{上級} **지고자**와 협의를 마쳤을 때, 천상의 무리 가운데 천사장 대변인은, 그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의 물질 잔여분에 대한 그런 처리를 이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런 요청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에,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모든 계층의 천상의 인격체를 대표하는 수많은 무리와 많은 친구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도움으로 **예수**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처리를 진행했다. 이 시신(屍身)은 순전히 물질 창조물이었으며; 물리적이고 형태화된 것이었으며; 부활한 모론시아 형체가 인봉된 묘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무덤에서 옮겨질 수 없었다. 모론시아 형체는, 특정한 모론시아 보조 인격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영(靈)에 속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보통 물질과 무관한 상태로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그 영역의 필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 존재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에게 식별될 수도 있다.

예수의 시신을 거의 순간적으로 분해하는, 나름대로 장엄하고 경건한 처리에 앞서, 그들이 시신을 무덤에서 제거할 준비가 됐을 때,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는 일이 **유란시아**의 2차_중도자들에게 할당됐다. 두 돌 중에서 비교적 큰 것은 맏돌 모양의 거대한 원형 바위였으며, 이것을 앞뒤로 움직여서 무덤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바위 위에 길게 파낸 홈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설치돼 있었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인** 경비원과 **로마** 군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이 거대한 돌이 외견상 저절로--곧 그런 움직임을 일으킬만한 수단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무덤 입구에서 굴러가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으며, 현장에서 급히 도망쳤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성전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로마인**들은 **안토니아**의 요새로 도망갔고, 백부장이 출근하자마자, 목격했던 것을 그에게 보고했다.

불충한 **유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예수**를 제

we would have his mortal remains put in our custody for immediate dissolution. We do not propose to employ our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we merely wish to invoke the process of accelerated time. It is enough that we have seen the Sovereign live and die on Urantia; the hosts of heaven would be spared the memory of enduring the sight of the slow decay of the human form of the Creator and Upholder of a universe. In the name of the celestial intelligences of all Nebadon, I ask for a mandate giving me the custody of the mortal body of Jesus of Nazareth and empowering us to proceed with its immediate dissolution.”

189:2.2 (2023.1) And when Gabriel had conferred with the senior Most High of Edentia, the archangel spokesman for the celestial hosts was given permission to make such disposition of the physical remains of Jesus as he might determine.

189:2.3 (2023.2) After the chief of archangels had been granted this request, he summoned to his assistance many of his fellows, together with a numerous host of the representatives of all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nd then, with the aid of the Urantia midwayers, proceeded to take possession of Jesus' physical body. This body of death was a purely material creation; it was physical and literal; it could not be removed from the tomb as the morontia form of the resurrection had been able to escape the sealed sepulchre. By the aid of certain morontia auxiliary personalities, the morontia form can be made at one time as of the spirit so that it can become indifferent to ordinary matter, while at another time it can become discernible and contactable to material beings, such as the mortals of the realm.

189:2.4 (2023.3) As they made ready to remove the body of Jesus from the tomb preparatory to according it the dignified and reverent disposal of near-instantaneous dissolution, it was assigned the secondary Urantia midwayers to roll away the stone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The larger of these two stones was a huge circular affair, much like a millstone, and it moved in a groove chiseled out of the rock, so that it could be rolled back and forth to open or close the tomb. When the watching Jewish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in the dim light of the morning, saw this huge stone begin to roll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apparently of its own accord — without any visible means to account for such motion — they were seized with fear and panic, and they fled in haste from the scene. The Jews fled to their homes, afterward going back to report these doings to their captain at the temple. The Romans fled to the fortress of Antonia and reported what they had seen to the centurion as soon as he arrived on duty.

189:2.5 (2023.4) The Jewish leaders began the sordid

거하려는 야비한 일을 시작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자,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경비원들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 대신에, 이 경비원과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 그들은 20명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혹시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경우에, 총독 앞에서 병사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왔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부활의 *진실*이 아니다. 신자들이 처음으로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은 **주님**의 확실한 부활 사건과 결합되어, 참되지 않은 어떤 믿음: 즉 **예수**의 필사자 신체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가르침으로 공식화 돼갔다. 분명한 사실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와 영원한 가치를 다루는 진리가 항상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실이 물질적으로 옳을지라도, 여러 사실이 합쳐진 것이 반드시 참된 영적 결론을 가져오게 되지는 않는다.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신이 회복되거나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 지연{遲延}의 간섭 없이, 그리고 육신이 부패되고 물질적으로 변질되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의 작동을 거치지 않고, “티끌이 티끌로” 돌아가는,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분해하도록 여유를 달라는, 천상의 무리의 요청이 허락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필사자 잔여물은, 시간 관점에서, 자연스런 이 분해 방식이 시간적으로 크게 가속화되어, 거의 순간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신체의 특징을 묘사하다시피, 원소로 분해되는 동일한 자연스런 과정을 거쳤다.

비록 부활한 모른시아 **주님**을 만나고, 알고보고, 또한 같이 교제한 많은 사람의 증언이 이 가르침을 확증하지만, **미가엘** 부활의 참된 증거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그가 **유란시아**를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까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인간이 그를 직접 체험했다.

business of supposedly getting rid of Jesus by offering bribes to the traitorous Judas, and now, when confronted with this embarrassing situation, instead of thinking of punishing the guards who deserted their post, they resorted to bribing these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They paid each of these twenty men a sum of money and instructed them to say to all: “While we slept during the nighttime, his disciples came upon us and took away the body.” And the Jewish leaders made solemn promises to the soldiers to defend them before Pilate in case it should ever come to the governor’s knowledge that they had accepted a bribe.

189:2.6 (2023.5) The Christian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has been based on the fact of the “empty tomb.” It was indeed a *fact* that the tomb was empty, but this is not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The tomb was truly empty when the first believers arrived, and this fact, associated with that of the undoubted resurrection of the Master, led to the formulation of a belief which was not true: the teaching that the material and mortal body of Jesus was raised from the grave. Truth having to do with spiritual realities and eternal values cannot always be built up by a combination of apparent facts. Although individual facts may be materially true, it does not follow that the association of a group of facts must necessarily lead to truthful spiritual conclusions.

189:2.7 (2023.6) The tomb of Joseph was empty, not because the body of Jesus had been rehabilitated or resurrected, but because the celestial hosts had been granted their request to afford it a special and unique dissolution, a return of the “dust to dus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delays of time and without the operation of the ordinary and visible processes of mortal decay and material corruption.

189:2.8 (2024.1) The mortal remains of Jesus underwent the same natural process of elemental disintegration as characterizes all human bodies on earth except that, in point of time, this natural mode of dissolution was greatly accelerated, hastened to that point where it became well-nigh instantaneous.

189:2.9 (2024.2) The true evidences of the resurrection of Michael are spiritual in nature, albeit this teaching is corroborated by the testimony of many mortals of the realm who met, recognized, and communed with the resurrected morontia Master. He became a part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almost one thousand human beings before he finally took leave of Urantia.

3. 섭리시대의 부활

3.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이 일요일 아침 네 시 반 조금 지났을 때, **가브리엘**이 천사장들을 옆으로 모이게 했고, **유란시아**에서 **아담** 섭리시대의 종결에 따른 일반적 부활을 개시할 준비를 완료했다. 적절한 구성으로 이미 정립돼 있는 이 엄청난 사건에, 큰 무리의 스라빔과 체루빔이 관여하게 됐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께서 스스로 존재하듯이, **아들**에게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비록 내가 아직 우주 지배권 행사를 완전하게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잠자고 있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을, 스스로 부과했던 이 한계가 어떤 방법으로든 제한하지 못할 것이니, 행성 부활의 출석점호를 시작하라.”

그때 천사장들의 회로{回路}가 **유란시아**에서 처음으로 작동됐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가 행성의 영적 극{極} 위치로 이동했으며;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내자, 체계 맨션 세계들 가운데 첫 세계에, “**미가엘**의 명령이니, **유란시아** 섭리시대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가브리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아담** 시대 이후에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서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유란시아** 인간 종족들 가운데 모든 생존자가, 모론시아 수여식에 참석할 준비를 갖추고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스라빔과 그 동역자들이 맨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일반적으로 이 스랍 수호자들은 생존자들이 필사자 무리를 집단으로 보호하는 일에 한때 배정됐었고, 그들이 맨션소니아의 부활실에서 깨어나는 순간 거기에 나타나게 돼있었지만, 그들이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해서 **가브리엘**이 이곳에 현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개인 스랍 수호자를 소유한 수많은 개별 인간과, 영적 인격자 진보를 달성키 위한 필수 조건을 성취한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의 시대들 동안 맨션 세계로 갔음에도, 그리고 **유란시아** 자손들의 특별한 부활과 천년 마다 있는 부활이 여러 번 있었더라도, 이번 경우는 세 번째 행성 출석점호, 즉 완전한 섭리시대 부활이었다. 첫 번째 경우는 **행성 왕자**가 도착했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담** 시대에, 그리고 이번의 세 번째는, 모론시아 부활, 즉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변환을 신호로 알렸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행성의 부활 신호를 수신하자, **사람의 아들**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유란시아**에 모인 천상의 무리를 지휘하는 권세를 양도하면서, 지방우주의 이 모든 아들을 각자의 지휘관의 관할 아래로 돌아가게 했다. 그는 이 일을 다 마치자,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통과하는 일이 완료됐음을 **임마누엘**에게 등록하기 위해 **살빙돈**으로 떠났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아무 임무도

189:3.1 (2024.3) A little after half past four o'clock this Sunday morning, Gabriel summoned the archangels to his side and made ready to inaugurate the general resurrec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Adamic dispensation on Urantia. When the vast host of the seraphim and the cherubim concerned in this great event had been marshaled in proper formation, the morontia Michael appeared before Gabriel, saying: “As my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as he given it to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Although I have not yet fully resumed the exercise of universe jurisdiction, this self-imposed limitation does not in any manner restrict the bestowal of life upon my sleeping sons; let the roll call of the planetary resurrection begin.”

189:3.2 (2024.4) The circuit of the archangels then operated for the first time from Urantia. Gabriel and the archangel hosts moved to the place of the spiritual polarity of the planet; and when Gabriel gave the signal, there flashed to the first of the system mansion worlds the voice of Gabriel, saying: “By the mandate of Michael, let the dead of a Urantia dispensation rise!” Then all the survivors of the human races of Urantia who had fallen asleep since the days of Adam, and who had not already gone on to judgment, appeared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in readiness for morontia investiture. And in an instant of time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made ready to depart for the mansion worlds. Ordinarily these seraphic guardians, onetime assigned to the group custody of these surviving mortals, would have been present at the moment of their awaking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but they were on this world itself at this time because of the necessity of Gabriel's presence here in connection with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Jesus.

189:3.3 (2024.5) Notwithstanding that countless individuals having personal seraphic guardians and those achieving the requisite attainment of spiritual personality progress had gone on to mansonia during the ages subsequent to the times of Adam and Eve, and though there had been many special and millennial resurrections of Urantia sons, this was the third of the planetary roll calls, or complete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The first occurred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he second during the time of Adam, and this, the third, signalized the morontia resurrection,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189:3.4 (2024.6) When the signal of the planetary resurrection had been received by the chief of archangels,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the Son of Man relinquished his authority over the celestial hosts assembled on Urantia, turning all these sons of the local universe back to the jurisdiction of their respective commanders. And when he had done this, he departed for Salvington to register with Immanuel the completion of the mortal transit

부여받지 않은 모든 천상의 무리가 즉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모론시아 **예수**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았다.

예수의 부활에 관계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들을 본 자들에게 비친 상황이 이상{以上}과 같았다.

4. 빈 무덤 발견

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한 시간에 대해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 열 명의 사도가 **엘리아**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머물렀음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며, 그들은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기대고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누워서 잠들었다. 이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도마**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모였다. **도마**는 그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인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동역자들을 둘러본 후에 즉시 그 방을 나갔으며, **베스페이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자신의 불행을 혼자 가슴 아파 할 생각이었다. 사도들 모두 겪은 고통은, 의심과 절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비탄, 그리고 수치심 때문이었다.

니고데모의 집에는,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예루살렘**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12내지 15명의 제자와 함께 모였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는 15내지 20명의 주요 여신도가 있었다. 오직 이 여자들만 **요셉**의 집에 머물렀으며, **안식일** 기간과 **안식일**이 끝난 저녁 시간 동안 숨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비 부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또한 둘째 돌을 무덤 앞에 굴러왔다는 사실과, 이 두 돌에 **빌라도**의 봉인을 붙여놓은 것도 알지 못했다.

이 일요일 아침 세 시 조금 전, 날이 밝아오는 첫 징후가 동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여자들 중에서 다섯 명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양의 특별한 방부처리용 기름을 준비했으며, 세마포 형겼을 여러 장 가져갔다. 이는 **예수**의 시신에 더 완벽하게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형겼으로 신중하게 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길을 떠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알패오** 쌍둥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 **추사**의 아내 **요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에스라**의 딸 **수산나**였다.

of Michael. And he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ll the celestial host not required for duty on Urantia. But Gabriel remained on Urantia with the morontia Jesus.

189:3.5 (2025.1) And this is the recital of the event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s viewed by those who saw them as they really occurred, free from the limitations of partial and restricted human vision.

4. DISCOVERY OF THE EMPTY TOMB

189:4.1 (2025.2) As we approach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on this early Sunday morning, it should be recalled that the ten apostles were sojourning at the home of Elijah and Mary Mark, where they were asleep in the upper chamber, resting on the very couches whereon they reclined during the last supper with their Master. This Sunday morning they were all there assembled except Thomas. Thomas was with them for a few minutes late Saturday night when they first got together, but the sight of the apostles, coupled with the thought of what had happened to Jesus, was too much for him. He looked his associates over and immediately left the room, going to the home of Simon in Bethpage, where he thought to grieve over his troubles in solitude. The apostles all suffered, not so much from doubt and despair as from fear, grief, and shame.

189:4.2 (2025.3) At the home of Nicodemus there were gathered together, with David Zebedee and Joseph of Arimathea, some twelve or fifteen of the more prominent of the Jerusalem disciples of Jesus.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there were some fifteen or twenty of the leading women believers. Only these women abode in Joseph's house, and they had kept close within during the hours of the Sabbath day and the evening after the Sabbath, so that they were ignorant of the military guard on watch at the tomb; neither did they know that a second stone had been rolled in front of the tomb, and that both of these stones had been placed under the seal of Pilate.

189:4.3 (2025.4) A little before three o'clock this Sunday morning, when the first signs of day began to appear in the east, five of the women started out for the tomb of Jesus. They had prepared an abundance of special embalming lotions, and they carried many linen bandages with them. It was their purpose more thoroughly to give the body of Jesus its death anointing and more carefully to wrap it up with the new bandages.

189:4.4 (2025.5) The women who went on this mission of anointing Jesus' body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the Alpheus twins, Salome the mother of the Zebedee brothers, Joanna the wife of Chuza, and Susanna the daughter of Ezra of Alexandria.

기름을 소지한 다섯 여자가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은 세 시 반쯤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을 지나올 때, 여러 명의 군인이 매우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성을 향해 도망치는 것을 봤고, 이것으로 인해 잠시 지체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를 도와 돌을 굴러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서로 물어봤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이히 여기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적 작은 바윗돌을 옆으로 치우면서, 열린 묘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무덤은 길 동편 언덕에 있는 그의 동산 안에 있었고, 동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때는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진 후였으므로,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를 식별할 수 있었고,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리아**는,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놓여 놓았던 석굴{石窟}에서, 오직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접혀진 수건과, 천상의 무리가 시신을 치우기 전에 그들이 돌 위에 얹어놓았을 때 천에 싸여 놓혀 있던 그대로 남아 있는 천들만 볼 수 있었다. 덮어 씌웠던 천은 시신이 놓여 있던 발 끝 쪽에 있었다.

마리아는, (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무덤 입구에 잠시 머문 후에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오직 **이수**의(壽衣)만 있는 것을 봤으며,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했다. 여자들은 모두 극도로 불안해했으며; 성문에서 겁에 질린 군인들을 만난 후로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마리아**가 이런 괴로운 비명 소리를 지르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단숨에 **다마스쿠스** 문까지 달려갔다. 그때 **요안나**가 정신을 차리게 됐고, **마리아**를 거기에 두고 자기들만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했으며; 동무들을 불러 세운 후에, 무덤으로 돌아갔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자매들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려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 가까이 돌아오자, 뛰어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분이 거기에 없다--저들이 그분을 가져가버렸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을 무덤으로 데려갔고, 모두 함께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다섯 여자 전체가 입구 근처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기들끼리만 **안식일**을 보냈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신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

189:4.5 (2025.6) It was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when the five women, laden with their ointments, arrived before the empty tomb. As they passed out of the Damascus gate, they encountered a number of soldiers fleeing into the city more or less panic-stricken, and this caused them to pause for a few minutes; but when nothing more developed, they resumed their journey.

189:4.6 (2025.7) They were greatly surprised to see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inasmuch as they had said among themselves on the way out, “Who will help us roll away the stone?” They set down their burdens and began to look upon one another in fear and with great amazement. While they stood there, atremble with fear, Mary Magdalene ventured around the smaller stone and dared to enter the open sepulchre. This tomb of Joseph was in his garden on the hillside on the eastern side of the road, and it also faced toward the east. By this hour there was just enough of the dawn of a new day to enable Mary to look back to the place where the Master's body had lain and to discern that it was gone. In the recess of stone where they had laid Jesus, Mary saw only the folded napkin where his head had rested and the bandages wherewith he had been wrapped lying intact and as they had rested on the stone before the celestial hosts removed the body. The covering sheet lay at the foot of the burial niche.

189:4.7 (2026.1) After Mary had tarried in the doorway of the tomb for a few moments (she did not see distinctly when she first entered the tomb), she saw that Jesus' body was gone and in its place only these grave cloths, and she uttered a cry of alarm and anguish. All the women were exceedingly nervous; they had been on edge ever since meeting the panicky soldiers at the city gate, and when Mary uttered this scream of anguish, they were terror-stricken and fled in great haste. And they did not stop until they had run all the way to the Damascus gate. By this time Joanna was conscience-stricken that they had deserted Mary; she rallied her companions, and they started back for the tomb.

189:4.8 (2026.2) As they drew near the sepulchre, the frightened Magdalene, who was even more terrorized when she failed to find her sisters waiting when she came out of the tomb, now rushed up to them, excitedly exclaiming: “He is not there — they have taken him away!” And she led them back to the tomb, and they all entered and saw that it was empty.

189:4.9 (2026.3) All five of the women then sat down on the stone near the entrance and talked over the situation. It had not yet occurred to them that Jesus had been resurrected. They had been by themselves over the Sabbath, and they conjectured that the body had been moved to

으려고 고심하며 궁지에 빠졌으면서도,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시신이 옮겨졌다면, 그것을 찢던 형겔은 어떻게 묘실 선반 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겨질 수 있었겠는가?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이 여자들이 거기 앉았을 때, 한 쪽 옆에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봤다. 그들은 잠시 동안 다시 놀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우리 **주님**을 어디에 뒀습니까? 그들이 그를 다른 곳에 놓혔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낯선 사람이 아무 대답도 없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마리아**가 대답했다: “**요셉**의 무덤에 놓였던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주님**이 너무 많이 변화했으므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빛을 등지고 있는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곱씹히 생각할 때, 그가 귀에 익은 목소리로 **막달라**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렀다. 그리고 늘 듣던 연민의 정과 애정에 넘치는 인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고, 그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 “내 **주여**, 내 **주님**이시여!” 그제서야, 영광스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주님**이심을 다른 여자들도 모두 알아봤고, 신속히 그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들의 눈이 모론시아 형태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모론시아 인격체들 가운데 일부와 연합한, 변형시키는 존재들과 중도자들의 특별한 사역 때문이었다.

마리아가 그의 발을 껴안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마리아**야, 나는 네가 육신 속에서 알았던 내가 아니니,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태로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모두 가서,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너희가 나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해라.”

이 여자들은, 놀라서 어리벙벙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자, 급히 성으로 돌아가서, **엘리아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거기에 있는 열 사도에게 이야기했으나; 사도들은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하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이 일을 직접 확인하려고 급히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으며, **요한**이

another resting place. But when they pondered such a solution of their dilemma, they were at a loss to account for the orderly arrangement of the grave cloths; how could the body have been removed since the very bandages in which it was wrapped were left in position and apparently intact on the burial shelf?

189:4.10 (2026.4) As these women sat there in the early hours of the dawn of this new day, they looked to one side and observed a silent and motionless stranger. For a moment they were again frightened, but Mary Magdalene, rushing toward him and addressing him as if she thought he might be the caretaker of the garden, said, “Where have you taken the Master? Where have they laid him? Tell us that we may go and get him.” When the stranger did not answer Mary, she began to weep. Then spoke Jesus to them, saying, “Whom do you seek?” Mary said: “We seek for Jesus who was laid to rest in Joseph’s tomb, but he is gone. Do you know where they have taken him?” Then said Jesus: “Did not this Jesus tell you, even in Galilee, that he would die, but that he would rise again?” These words startled the women, but the Master was so changed that they did not yet recognize him with his back turned to the dim light. And as they pondered his words, he addressed the Magdalene with a familiar voice, saying, “Mary.” And when she heard that word of well-known sympathy and affectionate greeting, she knew it was the voice of the Master, and she rushed to kneel at his feet while she exclaimed, “My Lord, and my Master!” And all of the other women recognized that it was the Master who stood before them in glorified form, and they quickly knelt before him.

189:4.11 (2027.1) These human eyes were enabled to see the morontia form of Jesus because of the special ministry of the transformers and the midwayers in association with certain of the morontia personalities then accompanying Jesus.

189:4.12 (2027.2) As Mary sought to embrace his feet, Jesus said: “Touch me not, Mary, for I am not as you knew me in the flesh. In this form will I tarry with you for a season before I ascend to the Father. But go, all of you, now and tell my apostles — and Peter — that I have risen, and that you have talked with me.”

189:4.13 (2027.3) After these women had recovered from the shock of their amazement, they hastened back to the city and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related to the ten apostles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but the apostles were not inclined to believe them. They thought at first that the women had seen a vision, but when Mary Magdalene repeated the words which Jesus had spoken to them, and when Peter heard his name, he rushed out of the upper chamber, followed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여자들은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되풀이했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5.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골고다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두 사도가 달려가는 동안, **베드로**의 생각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지만, **예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예수**께서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반쯤 믿었으며,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약속을 회상했다. 묘한 일이지만, 십자가형이 있는 후,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다. **요한**은, 성 밖으로 급히 나갈 때, 기쁨과 희망의 야릇한 환희가 그의 혼 속에 솟아났다. 그는 살아나신 **주님**을 여자들이 정말로 만났다는 것을 반쯤 확신했다.

베드로보다 나이 어린 **요한**이 그를 앞질러 뛰어들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요한**은 문 앞에 서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으며, **마리아**가 설명한 대로였다.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들어가서, 너무 색다르게 놓여있는 수의와 빈 무덤을 살펴보았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요한**은 다시 들어가서 직접 모든 것을 살폈으며, 그 후에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아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을 마음 속에 새겨봤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무덤이 약탈당한 것이 아니냐고, 아마 대적하는 자들이 경비병을 매수하여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한**은,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하기에는 무덤이 너무 질서 정연하게 꿰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형체들이 남겨졌는지, 그리고 있던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다시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고, 더 자세히 수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도들에게 잦았지만, 그들이 모두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다. **마리아**는 귀에 익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무덤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을 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리라는 것, 그리

closely by John, in great haste to reach the tomb and see these things for himself.

189:4.14 (2027.4) The women repeated the story of talking with Jesus to the other apostles, but they would not believe; and they would not go to find out for themselves as had Peter and John.

5. PETER AND JOHN AT THE TOMB

189:5.1 (2027.5) As the two apostles raced for Golgotha and the tomb of Joseph, Peter's thoughts alternated between fear and hope; he feared to meet the Master, but his hope was aroused by the story that Jesus had sent special word to him. He was half persuaded that Jesus was really alive; he recalled the promise to rise on the third day. Strange to relate, this promise had not occurred to him since the crucifixion until this moment as he hurried north through Jerusalem. As John hastened out of the city, a strange ecstasy of joy and hope welled up in his soul. He was half convinced that the women really had seen the risen Master.

189:5.2 (2027.6) John, being younger than Peter, outran him and arrived first at the tomb. John tarried at the door, viewing the tomb, and it was just as Mary had described it. Very soon Simon Peter rushed up and, entering, saw the same empty tomb with the grave cloths so peculiarly arranged. And when Peter had come out, John also went in and saw it all for himself, and then they sat down on the stone to ponder the meaning of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And while they sat there, they turned over in their minds all that had been told them about Jesus, but they could not clearly perceive what had happened.

189:5.3 (2027.7) Peter at first suggested that the grave had been rifled, that enemies had stolen the body, perhaps bribed the guards. But John reasoned that the grave would hardly have been left so orderly if the body had been stolen, and he also raised the question as to how the bandages happened to be left behind, and so apparently intact. And again they both went back into the tomb more closely to examine the grave cloths. As they came out of the tomb the second time, they found Mary Magdalene returned and weeping before the entrance. Mary had gone to the apostles believing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grave, but when they all refused to believe her report, she became downcast and despairing. She longed to go back near the tomb, where she thought she had heard the familiar voice of Jesus.

189:5.4 (2027.8) As Mary lingered after Peter and John had gone, the Master again appeared to her, saying: "Be not doubting; have the courage to believe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Go back to my apostles and again tell them that I have risen,

고 약속대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곧 갈 것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마리아는 급히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와 대화한 것에 대해 사도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그들의 조롱하는 태도는 사라졌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됐다.

that I will appear to them, and that presently I will go before them into Galilee as I promised.”

^{189:5.5 (2028.1)} Mary hurried back to the Mark home and told the apostles she had again talked with Jesus, but they would not believe her. But when Peter and John returned, they ceased to ridicule and became filled with fear and apprehension.

제190편. 예수 모론시아 출현

⇨ 189

유란시아 책

191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90편

예수 모론시아 출현

섹션

소개

1. 부활의 소식
2. 베다니에 나타난 예수
3. 요셉의 집에서
4. 그리스인에게 나타나심
5. 두 형제와 함께 걸어가심

소개

부활한 예수께서는 이제, 그 영역에서 한 필사자의 상승하는 모론시아 생애를 체험하기 위해, 잠시 **유란시아**에서 지낼 준비를 했다. 그가 필사자로 육신화했던 세계에서 모론시아 생애의 이 시기를 보냈음에도, 어쨌든, 그것은 **예루셈**에 있는 일곱 맨션 세계의 점진적 모론시아 일생을 통과하는, **사타니아** 필사자의 체험과 모든 점에서 대등할 것이다.

예수께 내재되고 그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한 이 모든 능력--곧 생명 재능--은, 천국을 믿는 자에게 그가 수여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인데, 이것은 지금도, 믿는 자가 자연스런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만든다.

이 영역들의 필사자는, **예수**께서 이 일요일 아침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가졌던 과도기 육신, 즉 모론시아 육신과 똑같은 유형으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이 육신에는 순환되는 피가 없고, 그런 존재들은 평범한 물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이 모론시아 형체는 **실재한다**.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다양한 신자가 그를 봤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를 봤으며; 환상이나 환각에 스스로 속은 것이 아니었다.

PAPER 190

MORONTIA APPEARANCES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Heralds of the Resurrection
2. Jesus' Appearance at Bethany
3. At the Home of Joseph
4. Appearance to the Greeks
5. The Walk with Two Brothers

INTRODUCTION

190:0.1 (2029.1) THE resurrected Jesus now prepares to spend a short period on Urantia for the purpose of experiencing the ascending morontia career of a mortal of the realms. Although this time of the morontia life is to be spent on the world of his mortal incarnation, it will, however, be in all respects the counterpart of the experience of Satania mortals who pass through the progressive morontia life of the seven mansion worlds of Jerusalem.

190:0.2 (2029.2) All this power which is inherent in Jesus — the endowment of life — and which enabled him to rise from the dead, is the very gift of eternal life which he bestows upon kingdom believers, and which even now makes certain their resurrection from the bonds of natural death.

190:0.3 (2029.3) The mortals of the realms will arise i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with the same type of transition or morontia body that Jesus had when he arose from the tomb on this Sunday morning. These bodies do not have circulating blood, and such beings do not partake of ordinary material food; nevertheless, these morontia forms are *real*. When the various believers saw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they really saw him; they were not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은, 초기 복음을 가르치던 모든 분파의 신앙에 기본적인 주요 특색이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및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선생이,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는 신앙에 동참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데 **막달라 마리아**가 맡았던 탁월한 역할을 조망할 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변인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여자 단체의 대변인이었음이 기록됐어야 했다. **마리아**는 여자 일꾼들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석{首席} 교사였고 공식 대변자였다. **마리아**는 이미 매우 용의주도한 여자가 돼있었으므로, **요셉**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남자에게 말을 걸면서 보여준 대담성은,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보여준다. **유대인** 여자는 전통적으로 낯선 남자에게 접근할 수 없음을 **마리아**가 잠시 잊었던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극치를 이뤘는지,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보여준다.

1. 부활의 소식

사도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게 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그의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겼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증거로 인해 압박을 받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완전한 증명에 직면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예수**를 봤고 그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다섯 여자의 보고를 사도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고, 다른 여자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딸과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관련 시켜서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여자들은 믿었다. 여섯 시 조금 지났을 때, **예수**를 만났던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의 딸이 **니고데모**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거기에 모여 있는, **요셉, 니고데모, 다윗 세베대**, 및 다른 남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했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유대인**이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셉**과 **다윗**은, 그 보고를 믿고 싶어졌으므로, 급히 나가서 무덤을 조사해 볼 정도가 됐으며, 그 여자들이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묘실을 들여다 본 마지막 사람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고, 일곱 시 반쯤에는 수의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 지휘관은 모든 것을 세마포 형겔에 싸서 근처에 있는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the self-deceived victims of visions or hallucinations.

190:0.4 (2029.4) Abiding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the cardinal feature of the faith of all branches of the early gospel teaching. In Jerusalem, Alexandria, Antioch, and Philadelphia all the gospel teachers united in this implicit faith in the Master's resurrection.

190:0.5 (2029.5) In viewing the prominent part which Mary Magdalene took in proclaiming the Master's resurrection, it should be recorded that Mary was the chief spokesman for the women's corps, as was Peter for the apostles. Mary was not chief of the women workers, but she was their chief teacher and public spokesman. Mary had become a woman of great circumspection, so that her boldness in speaking to a man whom she considered to be the caretaker of Joseph's garden only indicates how horrified she was to find the tomb empty. It was the depth and agony of her love, the fullness of her devotion, that caused her to forget, for a moment, the conventional restraints of a Jewish woman's approach to a strange man.

1. HERALDS OF THE RESURRECTION

190:1.1 (2029.6) The apostles did not want Jesus to leave them; therefore had they slighted all his statements about dying, along with his promises to rise again. They were not expecting the resurrection as it came, and they refused to believe until they were confronted with the compulsion of unimpeachable evidence and the absolute proof of their own experiences.

190:1.2 (2030.1) When the apostles refused to believe the report of the five women who represented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Mary Magdalene returned to the tomb, and the others went back to Joseph's house, where they related their experiences to his daughter and the other women. And the women believed their report. Shortly after six o'clock the daughter of Joseph of Arimathea and the four women who had seen Jesus went over to the home of Nicodemus, where they related all these happenings to Joseph, Nicodemus, David Zebedee, and the other men there assembled. Nicodemus and the others doubted their story, doubt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conjectured that the Jews had removed the body. Joseph and David were disposed to believe the report, so much so that they hurried out to inspect the tomb, and they found everything just as the women had described. And they were the last to so view the sepulchre, for the high priest sent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to the tomb at half past seven o'clock to remove the grave cloths. The captain wrapped them all up in the linen sheet and threw them over a near-by cliff.

다윗과 **요셉**은 즉시 무덤을 떠나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고, 다락방에서 열 사도와 협의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비록 희미하기는 했지만, **요한 세베대**만 믿으려고 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자 심각한 의심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믿으려 했다.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떠나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사도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들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니고데모**의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오늘 아침에 심부름꾼들을 거기에 모이도록 지시해 뒀으므로, 그들이 모두 모이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서 내보낼 작정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천국 대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청하여 연락과 정보를 담당한 이 대장은 사도들로부터 떠났다. 다락방에서 나가던 길에, 그는 사도들의 자금 전부가 들어있는 **유다**의 돈 주머니를 **마태 레위**에게 맡겼다.

26명에 달하는 **다윗**의 심부름꾼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니고데모**의 집에 도착한 것은 아홉 시 반쯤이었다. **다윗**은 넓은 안마당에 즉시 그들을 모아 놓고 지시했다:

“형제 여러분, 내게 그리고 서로에게 서약한 대로 그동안 내 지시를 잘 따라왔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한 번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시킨 일이 없었음을, 돌이켜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진하여 천국 심부름꾼으로 지원한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려고 하며, 이 일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서약을 해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식 전달 단체를 해산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업무가 완료됐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필사자 심부름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들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죽을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덤에 가봤습니다--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대화를 나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네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해산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각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내면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전달 소식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심부름꾼들을 단념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의심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일요일 아침 열 시 조금 전에, 26명의 이 소식 전달자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엄청난 진리와 사건의 첫 소식을 전파하면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지난 수많은 경우처럼, **다윗 세베대**와 맺은 서약을 실천

190:1.3 (2030.2) From the tomb David and Joseph went immediately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held a conference with the ten apostles in the upper chamber. Only John Zebedee was disposed to believe, even faintly,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Peter had believed at first but, when he failed to find the Master, fell into grave doubting. They were all disposed to believe that the Jews had removed the body. David would not argue with them, but when he left, he said: “You are the apostles, and you ought to understand these things. I will not contend with you; nevertheless, I now go back to the home of Nicodemus, where I have appointed with the messengers to assemble this morning, and when they have gathered together, I will send them forth on their last mission, as heralds of the Master’s resurrection. I heard the Master say that, after he should die, he would rise on the third day, and I believe him.” And thus speaking to the dejected and forlorn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is self-appointed chief of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took leave of the apostles. On his way from the upper chamber he dropped the bag of Judas, containing all the apostolic funds, in the lap of Matthew Levi.

190:1.4 (2030.3) It was about half past nine o’clock when the last of David’s twenty-six messengers arrived at the home of Nicodemus. David promptly assembled them in the spacious courtyard and addressed them:

190:1.5 (2030.4) “Men and brethren, all this time you have served me in accordance with your oath to me and to one another, and I call you to witness that I have never yet sent out false information at your hands. I am about to send you on your last mission as volunteer messengers of the kingdom, and in so doing I release you from your oaths and thereby disband the messenger corps. Men, I declare to you that we have finished our work. No more does the Master have need of mortal messengers; he has risen from the dead. He told us before they arrested him that he would die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I have seen the tomb — it is empty. I have talked with Mary Magdalene and four other women, who have talked with Jesus. I now disband you, bid you farewell, and send you on your respective assignments, and the message which you shall bear to the believers is: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the tomb is empty.’”

190:1.6 (2030.5) The majority of those present endeavored to persuade David not to do this. But they could not influence him. They then sought to dissuade the messengers, but they would not heed the words of doubt. And so, shortly before ten o’clock this Sunday morning, these twenty-six runners went forth as the first heralds of the mighty truth-fact of the resurrected Jesus. And they started out on this mission as they had on so

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신뢰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지체하는 일조차 배제하고, 이 임무를 위해 출발했으며;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들 대부분은 **다윗**이 한 말을 믿었으며, 또 어느 정도 의심하는 자들도, 신속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소식을 전했다.

영적 천국 단체인 사도들은 이날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거기서 두려움을 분명히 드러내고 불신을 나타냈던 반면, 이 평신도들은 사람의 형제 관계라는 **주님**의 복음을 사회화시키는 일을 처음 시도했으며, 두려움 없는 유능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한 세계와 한 우주의 부활하신 **구원주**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 **주님**이 택한 대표자들이 그의 말씀을 기꺼이 믿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들은 오히려 이 중대한 봉사를 시작했다.

이 26명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과, 남쪽으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알렉산드리아**까지, 신자들이 모여 있는 모든 처소로 파견됐다.

형제들과 작별한 후에,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요셉**의 집으로 갔고, 그 후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베다니**로 갔다. **다윗**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 소유물을 처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물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형제 **나사로**와 합류하려고 떠나는 여행길에 그들과 동행했다.

이때부터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요한 세베대**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벳새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예수**의 첫째 남동생 **야고보**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았다. **룻**은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베다니**에 남았다. **예수**의 나머지 가족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막내 여동생 **룻**과 결혼한 후 6월 초에, **마르다** 및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갔다.

2. 베다니에 나타난 예수

예수께서는, 모로시아 부활 때부터, 그의 영이 높은 곳으로 상승한 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각각 독립된 사건에서 열아홉 번 나타났다. 적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가시화 된 것을 영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무덤에 있는 다섯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역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 출현은 같은 일요일 **베다니**에서 정오

many others, in fulfillment of their oath to David Zebedee and to one another. These men had great confidence in David. They departed on this assignment without even tarrying to talk with those who had seen Jesus; they took David at his word. The majority of them believed what David had told them, and even those who somewhat doubted, carried the message just as certainly and just as swiftly.

190:1.7 (2031.1) The apostles, the spiritual corps of the kingdom, are this day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where they manifest fear and express doubts, while these laymen, representing the first attempt at the socialization of the Master's gospel of the brotherhood of man, under the orders of their fearless and efficient leader, go forth to proclaim the risen Savior of a world and a universe. And they engage in this eventful service ere his chosen representatives are willing to believe his word or to accept the evidence of eyewitnesses.

190:1.8 (2031.2) These twenty-six were dispatched to the home of Lazarus in Bethany and to all of the believer centers, from Beersheba in the south to Damascus and Sidon in the north; and from Philadelphia in the east to Alexandria in the west.

190:1.9 (2031.3) When David had taken leave of his brethren, he went over to the home of Joseph for his mother, and they then went out to Bethany to join the waiting family of Jesus. David abode there in Bethany with Martha and Mary until after they had disposed of their earthly possessions, and he accompanied them on their journey to join their brother, Lazarus, at Philadelphia.

190:1.10 (2031.4) In about one week from this time John Zebedee took Mary the mother of Jesus to his home in Bethsaida. James, Jesus' eldest brother, remained with his family in Jerusalem. Ruth remained at Bethany with Lazarus's sisters. The rest of Jesus' family returned to Galilee. David Zebedee left Bethany with Martha and Mary, for Philadelphia, early in June, the day after his marriage to Ruth, Jesus' youngest sister.

2. JESUS' APPEARANCE AT BETHANY

190:2.1 (2031.5) From the time of the morontia resurrection until the hour of his spirit ascension on high, Jesus made nineteen separate appearances in visible form to his believers on earth. He did not appear to his enemies nor to those who could not make spiritual use of his manifestation in visible form. His first appearance was to the five women at the tomb; his second, to Mary Magdalene, also at the tomb.

190:2.2 (2031.6) The third appearance occurred about

무렵 발생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의 첫 동생 **야고보**가 **다윗**의 심부름꾼이 약 한 시간 전에 전해 준 소식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나사로**의 정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가 부활했던 빈 무덤 앞에서 있었다. **야고보**는 만형의 이상 사명을 믿으려는 경향이 항상 있었지만, **예수**의 업무에 오랫동안 접하지 못했으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도들의 후반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의심에 빠져 있었다. 심부름꾼이 가져온 소식 때문에,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도착했고, 이른 새벽 시간에 **요셉**의 무덤에서 겪었던 체험을, 흥분하면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마리아**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윗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당연히 **룻**은 이 보고를 믿었으며, **유다**는 **다윗**과 **살로메**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것을 믿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야고보**를 찾으려 했으나 미처 발견하기 전에, **야고보**는 아직 무덤 근처 정원에서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 자기 어깨에 손을 대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으며; 옆으로 돌아보는 순간, 자기 옆에서 점차 모습이 드러나는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됐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으며,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러자 그 이상한 형체가 말했다: "**야고보**야, 나는 천국 봉사를 위해 너를 부르려고 왔다. 네 형제들과 진지하게 하나가 돼서 나를 따라오거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은 **야고보**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만형 **예수**임을 알게 됐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모른시아 형체를 알아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가 일단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그의 매력 있는 인격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본 **야고보**는, 무릎을 꿇으면서 "내 아버지여, 형님이여"라고 소리쳤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거의 3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곧 일어날 사건을 예견했다. 그 집 가까이 이르자, **예수**께서는, "**야고보**야,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라"고 말했다.

그들이 아직 **베스페이지**에서 **야고보**를 찾는 중일 때, 그가 집 안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내가 방금 **예수**를 보고 이야기했으며, 그와 함께 대화했다. 그는 죽지 않았으며; 살아나셨다! 내 앞에서 사라지면서, '내가 너희 모두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라'고 말했다." 그가 말을 마칠 무렵에 **유다**가 돌아왔고, 정원에서 **예수**를 만났던 체험을 **유다**를 위해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 **야고보**는 이때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다윗**은 이렇

noon of this Sunday at Bethany. Shortly after noontide, Jesus' oldest brother, James, was standing in the garden of Lazarus before the empty tomb of the resurrected brother of Martha and Mary,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news brought to them about one hour previously by the messenger of David. James had always inclined to believe in his eldest brother's mission on earth, but he had long since lost contact with Jesus' work and had drifted into grave doubting regarding the later claims of the apostles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whole family was startled and well-nigh confounded by the news brought by the messenger. Even as James stood before Lazarus's empty tomb, Mary Magdalene arrived on the scene and was excitedly relating to the family her experiences of the early morning hours at the tomb of Joseph. Before she had finished, David Zebedee and his mother arrived. Ruth, of course, believed the report, and so did Jude after he had talked with David and Salome.

190:2.3 (2032:1) In the meantime, as they looked for James and before they found him, while he stood there in the garden near the tomb, he became aware of a near-by presence, as if someone had touched him on the shoulder; and when he turned to look, he beheld the gradual appearance of a strange form by his side. He was too much amazed to speak and too frightened to flee. And then the strange form spoke, saying: "James, I come to call you to the service of the kingdom. Join earnest hands with your brethren and follow after me." When James heard his name spoken, he knew that it was his eldest brother, Jesus, who had addressed him. They all had more or less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morontia form of the Master, but few of them had any trouble recognizing his voice or otherwise identifying his charming personality when he once began to communicate with them.

190:2.4 (2032:2) When James perceived that Jesus was addressing him, he started to fall to his knees, exclaiming, "My father and my brother," but Jesus bade him stand while he spoke with him. And they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talked for almost three minutes; talked over experiences of former days and forecast the events of the near future. As they neared the house, Jesus said, "Farewell, James, until I greet you all together."

190:2.5 (2032:3) James rushed into the house, even while they looked for him at Bethpage, exclaiming: "I have just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visited with him. He is not dead; he has risen! He vanished before me, saying, 'Farewell until I greet you all together.'" He had scarcely finished speaking when Jude returned, and he retold the experience of meeting Jesus in the garden for the benefit of Jude. And they all began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James now announced that he would not return to Galilee, and David

게 소리쳤다: “들떠있는 여자들만 그를 본 것이 아니라; 용감한 남자들도 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직접 그를 만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두 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의 네 번째 출현이 이뤄졌으므로, **다윗**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그는 이때 모두 20명에 이르는 육신의 가족 및 그 친구들 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주님**은 열려있는 뒷문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한때 육신으로 나와 가까이 지냈고 하늘 나라에서 내 형제와 자매로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진리의 빛을 따르기로 선택하기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래 지체했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두, **아버지** 나라에서 **진리의 영**과 교제하도록 해라.” 그들이 놀라서 충격 받았던 처음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면서, 그를 껴안으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성으로 달려가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싶어 했으나, **야고보**가 그들을 제지했다. **막달라 마리아**만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정원에서 **예수**와 대화할 때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것들이 있었으므로, **야고보**는 이런 모론시아 방문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한 **주님**과 이날 나눴던 대화 내용을 결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3. 요셉의 집에서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의 다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는, 같은 일요일 오후 네 시 15분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모인 약 25명의 여신도 앞에서 일어났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출현이 이뤄지기 불과 몇 분 전에 **요셉**의 집에 도착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이 **베다니**에 나타났음을 사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게, 자매 신도들에게도 그 사건을 보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마리아**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모든 여자에게서 받은 후에, **예수**의 가족과 함께 **베다니**에 있을 때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리아**가 감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고 장엄한 침묵이 그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은 바로 자기들 한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형체로 보게 됐다. 그가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천국의 교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매인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 온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신자들이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를 강

exclaimed: “He is seen not only by excited women; even stronghearted men have begun to see him. I expect to see him myself.”

190:2.6 (2032.4) And David did not long wait, for the fourth appearance of Jesus to mortal recognition occurred shortly before two o'clock in this very home of Martha and Mary, when he appeared visibly before his earthly family and their friends, twenty in all. The Master appeared in the open back door, saying: “Peace be upon you. Greetings to those once near me in the flesh and fellowship for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kingdom of heaven. How could you doubt? Why have you lingered so long before choosing to follow the light of truth with a whole heart? Come, therefore, all of you into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of Truth in the Father's kingdom.” As they began to recover from the first shock of their amazement and to move toward him as if to embrace hi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0:2.7 (2032.5) They all wanted to rush off to the city to tell the doubting apostles about what had happened, but James restrained them. Mary Magdalene, only, was permitted to return to Joseph's house. James forbade their publishing abroad the fact of this morontia visit because of certain things which Jesus had said to him as they conversed in the garden. But James never revealed more of his visit with the risen Master on this day at the Lazarus home in Bethany.

3. AT THE HOME OF JOSEPH

190:3.1 (2033.1) The fif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to the recognition of mortal eyes occurred in the presence of some twenty-five women believers assembled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at about fifteen minutes past four o'clock on this same Sunday afternoon. Mary Magdalene had returned to Joseph's house just a few minutes before this appearance. James, Jesus' brother, had requested that nothing be said to the apostles concerning the Master's appearance at Bethany. He had not asked Mary to refrain from reporting the occurrence to her sister believers. Accordingly, after Mary had pledged all the women to secrecy, she proceeded to relate what had so recently happened while she was with Jesus' family at Bethany. And she was in the very midst of this thrilling recital when a sudden and solemn hush fell over them; they beheld in their very midst the fully visible form of the risen Jesus. He greeted them, saying: “Peace be upon you. In the fellowship of the kingdom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rich nor poor, free nor bond, man nor woman. You also are called to publish the good news of the liberty of mankind through the gospel of sonship with God in the kingdom of heaven. Go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건하게 하고 병자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땅 끝까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여자들은 소리 없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때까지 다섯 번에 걸쳐 이뤄진 **예수**의 모른시아 출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네 번 체험했다.

오전 반나절이 지날 무렵에 심부름꾼들을 파견한 결과로,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의 출현을 암시하는 무의식적인 누설로 인해, **예수**께서 부활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성에 두루 퍼졌다는 소식이, 저녁 무렵에는 **유대인** 관리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에 심각하게 자극을 받았다. **가야비**는 **안나스**와 급히 의논한 후에, 그날 저녁 여덟 시에 모이도록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조처한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그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자는 제안까지 있었으나; 거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회의가 해산됐으므로, 이 제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못했다. 그들은 **예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4. 그리스인에게 나타나심

네 시 반쯤 됐을 때, **후라비우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에 모인 약 40명의 **그리스인** 신자에게, **주님**이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보고를 듣고 토론하고 있을 때, 문들이 견고히 닫혀 있음에도, 그가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서 출현했지만,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왔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너희는 모두 형제가 될 것이다--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계로 가서, 너희가 천국 대사들로부터 받은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신앙과 진리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아들들의 형제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와 교제할 것이다.” 그는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 후에 떠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저녁 내내 그 집에 머물러 있었으며;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과감히 나가서 전하지 못했다. 또한 이 **그리스인**들은 그 밤에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으며; **주님**이 다시 자신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일을 의논했다.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배반할 때,

and confirming believers in the faith thereof. And while you do this, forget not to minister to the sick and strengthen those who are fainthearted and fear-ridden. And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while the women fell on their faces and worshiped in silence.

190:3.2 (2033.2) Of the five morontia appearances of Jesus occurring up to this time, Mary Magdalene had witnessed four.

190:3.3 (2033.3) As a result of sending out the messengers during the midforenoon and from the unconscious leakage of intimations concerning this appearance of Jesus at Joseph's house, word began to come to the rulers of the Jews during the early evening that it was being reported about the city that Jesus had risen, and that many persons were claiming to have seen him. The Sanhedrists were thoroughly aroused by these rumors. After a hasty consultation with Annas, Caiaphas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to convene at eight o'clock that evening. It was at this meeting that action was taken to throw out of the synagogues any person who made mention of Jesus' resurrection. It was even suggested that anyone claiming to have seen him should be put to death; this proposal, however, did not come to a vote since the meeting broke up in confusion bordering on actual panic. They had dared to think they were through with Jesus. They were about to discover that their real trouble with the man of Nazareth had just begun.

4. APPEARANCE TO THE GREEKS

190:4.1 (2033.4) About half past four o'clock, at the home of one Flavius, the Master made his sixth morontia appearance to some forty Greek believers there assembled. While they were engaged in discussing the reports of the Master's resurrection, he manifested himself in their midst, notwithstanding that the doors were securely fastened, and speaking to them, said: “Peace be upon you. While the Son of Man appeared on earth among the Jews, he came to minister to all men. In the kingdom of my Father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you will all be brethren — the sons of God. Go you, therefore,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of salvation as you have received it from the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I will fellowship you in the brotherhood of the Father's sons of faith and truth.” And when he had thus charged them, he took leave, and they saw him no more. They remained within the house all evening; they were too much overcome with awe and fear to venture forth. Neither did any of these Greeks sleep that night; they stayed awake discussing these things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 그리스인 가운데 다수가 이 집단 가운데 있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과,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출현했다는 것에 관해 보고한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성 전체가 흥분하여 매우 심히 동요하게 됐다. **주님**은 이미, 자기 가족, 여자들, 및 **그리스인**들에게 출현했으며, 또한 곧 사도들 가운데도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관리들에게 이토록 갑자기 밀어닥치는 이런 새로운 문제를 재빨리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무척 생각했지만,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끼리 몇 시간 더 따로 떨어져서, 진지한 반성과 사려 깊은 숙고를 하기 바랐다.

5. 두 형제와 함께 걸어가심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에, 목동인 두 형제가 살았는데,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 제사, 예식절차, 및 축제에 참여했다. 형인 **클레오파스**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었는데; 아무튼 그는 회당에서 출교당한 상태였다. 그의 동생 **야곱**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교훈과 행한 일들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에 무척 흥미를 가졌다.

그 일요일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섯 시 거의 됐을 무렵에, 이 두 형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면서, **예수**에 관해, 즉 그의 교훈, 활동, 그리고 특별히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과, 어떤 여자들이 그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다. **클레오파스**는 이 소문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만, **야곱**은 그 모든 사건이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토론하며 논쟁할 때, 그의 일곱 번째 출현으로, 현시화 된 모른시아 **예수**가 그들 옆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여행했다. **클레오파스**는 **예수**의 가르침을 종종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조금 걸어난 후에 말씀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토록 진지하게 나눈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잠시 서서 그를 보다가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클레오파스**가 말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무슨 일이야?"고 물었다. **클레오파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이 일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과 행위에 큰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and hoping that the Master might again visit them. Among this group were many of the Greeks who were at Gethsemane when the soldiers arrested Jesus and Judas betrayed him with a kiss.

190:4.2 (2034.1) Rumors of Jesus' resurrection and reports concerning the many appearances to his followers are spreading rapidly, and the whole city is being wrought up to a high pitch of excitement. Already the Master has appeared to his family, to the women, and to the Greeks, and presently he manifests himself in the midst of the apostles. The Sanhedrin is soon to begin the consideration of these new problems which have been so suddenly thrust upon the Jewish rulers. Jesus thinks much about his apostles but desires that they be left alone for a few more hours of solemn reflection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before he visits them.

5. THE WALK WITH TWO BROTHERS

190:5.1 (2034.2) At Emmaus, about seven miles west of Jerusalem, there lived two brothers, shepherds, who had spent the Passover week in Jerusalem attending upon the sacrifices, ceremonials, and feasts. Cleopas, the elder, was a partial believer in Jesus; at least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His brother, Jacob, was not a believer, although he was much intrigued by what he had heard about the Master's teachings and works.

190:5.2 (2034.3) On this Sunday afternoon, about three miles out of Jerusalem and a few minutes before five o'clock, as these two brothers trudged along the road to Emmaus, they talked in great earnestness about Jesus, his teachings, work, and more especially concerning the rumors that his tomb was empty, and that certain of the women had talked with him. Cleopas was half a mind to believe these reports, but Jacob was insistent that the whole affair was probably a fraud. While they thus argued and debated as they made their way toward home, the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his seventh appearance, came alongside them as they journeyed on. Cleopas had often heard Jesus teach and had eaten with him at the homes of Jerusalem believers on several occasions. But he did not recognize the Master even when he spoke freely with them.

190:5.3 (2034.4) After walking a short way with them, Jesus said: "What were the words you exchanged so earnestly as I came upon you?" And when Jesus had spoken, they stood still and viewed him with sad surprise. Said Cleopas: "Can it be that you sojourn in Jerusalem and know not the things which have recently happened?" Then asked the Master, "What things?" Cleopas replied: "If you do not know about these matters, you are the only one in Jerusalem who has not heard these rumors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o was a prophet mighty in word and in deed before God and all the

듣지 못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 그를 **로마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 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그가 이방인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진지 지금 3일 제인데, 어떤 여자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다가,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으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계속 우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이때 **아곱**이 형의 말에 끼어들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를 더디게 납득하는구나! 너희가 토론했던 것이 이 사람의 교훈과 업화에 관한 것이라고 내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교훈에 대해 더 익숙하니, 너희에게 깨우쳐 주고 싶다. 그 **예수**가,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의 새 나라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제관계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기쁨으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늘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를 돌보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나사렛** 사람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만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의 날에 관해, 이 땅의 모든 가족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가난한 자들의 혼을 구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나라가 그를 찬미하리라는 것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구원주**는 황폐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림자처럼 되리라. 그가 참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일 것이고, 그 양들을 두 팔로 모으고 품에 안아서 친절하게 데리고 다니리라. 영적으로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완전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해방시킬 것이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빛을 볼 수 있게 하리라. 낙담한 자를 일으켜 주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공포에 노에 되고 악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리라.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픔과 비애 대신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수여하리라. 모든 나라의 소망이 될 것이며,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이 진리와 의의 **아들**이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빛과 함께 세상에 우뚝 솟아날 것이며;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할 것이며; 잃었던 자들을 반드시 찾아 구하리라. 연약한 자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가 모든 육체에

people.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delivered him up to the Romans and demanded that they crucify him. Now many of us had hoped that it was he who would deliver Israel from the yoke of the gentiles. But that is not all. It is now the third day since he was crucified, and certain women have this day amazed us by declaring that very early this morning they went to his tomb and found it empty. And these same women insist that they talked with this man; they maintain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when the women reported this to the men, two of his apostles ran to the tomb and likewise found it empty” — and here Jacob interrupted his brother to say, “but they did not see Jesus.”

190:5.4 (2035:1) As they walked along, Jesus said to them: “How slow you are to comprehend the truth! When you tell me that it is about the teachings and work of this man that you have your discussions, then may I enlighten you since I am more than familiar with these teachings. Do you not remember that this Jesus always taught that his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and that all men, being the sons of God, should find liberty and freedom in the spiritual joy of the fellowship of the brotherhood of loving service in this new kingdom of the truth of the heavenly Father's love? Do you not recall how this Son of Man proclaimed the salvation of God for all men, ministering to the sick and afflicted and setting free those who were bound by fear and enslaved by evil? Do you not know that this man of Nazareth told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be delivered up to his enemies, who would put him to death, and that he would arise on the third day? Have you not been told all this? And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concerning this day of salvation for Jew and gentile, where it says that in him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that he will hear the cry of the needy and save the souls of the poor who seek him; that 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 That such a Deliverer shall be as the shadow of a great rock in a weary land. That he will feed the flock like a true shepherd, gathering the lambs in his arms and tenderly carrying them in his bosom. That he will open the eyes of the spiritually blind and bring the prisoners of despair out into full liberty and light; that all who sit in darkness shall see the great light of eternal salvation. That he will bind up the brokenhearted,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of sin, and open up the prison to those who are enslaved by fear and bound by evil. That he will comfort those who mourn and bestow upon them the joy of salvation in the place of sorrow and heaviness. That he shall be the desire of all nations and the everlasting joy of those who seek righteousness. That this Son of truth and righteousness shall rise upon the world with healing light and saving power; even that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게 자기 영을 부어 줄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각 신자들 속에 영구적인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적혀있다. 그 사람이 너희에게 전해 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는지 감지하지 못했느냐?”

이 무렵에 그들은 이 형제가 거주하는 마을 가까이 도착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오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로 두 형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곧 두 형제가 사는 초라한 집에 도착했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헤어져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지만, 그들은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억지로 권유했다. 그들은 밤이 가까웠으므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고 고집 부렸다. **예수**께서 마침내 허락했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즉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빵을 드렸으며, 그가 떼어서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클레오파스**는 자기 손님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가, “이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모른시아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서**를 가르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동안,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타는 듯했음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모른시아 **주님**을 봤고, 부활한 **구원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집에서 달려 나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아홉 시쯤에, 그리고 **주님**이 열 사도에게 출현하기 직전에, 흥분한 이 두 형제는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자기들이 **예수**를 봤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과, 빵을 떼기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that he will really seek and save those who are lost. That he will not destroy the weak but minister salvation to all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That he will pour out his spirit upon all flesh, and that this Spirit of Truth shall be in each believer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Did you not understand how great was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this man delivered to you? Do you not perceive how great a salvation has come upon you?”

190:5.5 (2035.2) By this time they had come near to the village where these brothers dwelt. Not a word had these two men spoken since Jesus began to teach them as they walked along the way. Soon they drew up in front of their humble dwelling place, and Jesus was about to take leave of them, going on down the road, but they constrained him to come in and abide with them. They insisted that it was near nightfall, and that he tarry with them. Finally Jesus consented, and very soon after they went into the house, they sat down to eat. They gave him the bread to bless, and as he began to break and hand to them, their eyes were opened, and Cleopas recognized that their guest was the Master himself. And when he said, “It is the Master —,” the morontia Jesus vanished from their sight.

190:5.6 (2036.1) And then they said, the one to the other, “No wonder our hearts burned within us as he spoke to us while we walked along the road! and while he opened up to our understanding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190:5.7 (2036.2) They would not stop to eat. They had seen the morontia Master, and they rushed from the house, hastening back to Jerusalem to spread the good news of the risen Savior.

190:5.8 (2036.3) About nine o'clock that evening and just before the Master appeared to the ten, these two excited brothers broke in upon the apostles in the upper chamber, declaring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And they told all that Jesus had said to them and how they had not discerned who he was until the time of the breaking of the bread.

제191편. 사도들 및 다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심

⇨ 190

유랜시아 책

192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91편

사도들 및 다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심

섹션

소개

1.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2.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심
3. 모른시아 피조물과 함께
4.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5. 사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6.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PAPER 191

APPEARANCES TO THE APOSTLES
AND OTHER LEADE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earance to Peter
2. First Appearance to the Apostles
3. With the Morontia Creatures
4. The Tenth Appearance (At Philadelphia)
5. Second Appearance to the Apostles
6. The Alexandrian Appearance

소개

부활이 있었던 일요일은 사도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하루였으며;그들 가운데 열 명은, 문을 잠근 채 다락방 안에서 그날 하루 대부분을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밖에서 발견되어 산헤드린의 첩보원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다. 도마는 베스페이지에서 홀로 자신의 근심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함께 남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며, 더 유익한 진로에 따라서 그들의 논의에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혔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단언한 경우가 다섯 번이나 있었으며, 셋째 날이라고 암시한 경우가 적어도 세 번 있었음을 다시 열거했다. 요한의 태도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줬으며, 특히 형제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그랬다. 요한이 그 집단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 않았어도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들의 격리된 처지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큰 원인이었다. 요한 마가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계속 알렸고, 성에서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소문을 전했으나, 예수께서 이미

INTRODUCTION

191:0.1 (2037.1) RESURRECTION Sunday was a terrible day in the lives of the apostles; ten of them spent the larger part of the day in the upper chamber behind barred doors. They might have fled from Jerusalem, but they were afraid of being arrested by the agents of the Sanhedrin if they were found abroad. Thomas was brooding over his troubles alone at Bethpage. He would have fared better had he remained with his fellow apostles, and he would have aided them to direct their discussions along more helpful lines.

191:0.2 (2037.2) All day long John upheld the idea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He recounted no less than five different times when the Master had affirmed he would rise again and at least three times when he alluded to the third day. John's attitude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m, especially on his brother James and on Nathaniel. John would have influenced them more if he had not been the youngest member of the group.

191:0.3 (2037.3) Their isolation had much to do with their troubles. John Mark kept them in touch with developments about the temple and informed them as to the many rumors gaining headway in

출현했던 다른 신자 무리로부터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친절한 봉사를 받았지만, 이 사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무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사도들은, 천국의 직무에 관한 매일 매일의 정보 수집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다윗**의 심부름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해 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베드로는 이날 하루 종일, **주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특유하게 감성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베드로**는 **예수**의 시신이 증발해 버리길라도 한 것처럼, 수의가 무덤에 남아 있던 장면을 펼쳐버릴 수 없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가 살아났고 여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인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못한 단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오지 않는 이유가, 그날 밤 **안나스**의 집 안마당에서 그를 부인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비탄에 잠기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자들이 전해 준,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소식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함을 의미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하루 종일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안마당으로 나간 여덟 시 직후까지도 방황이 계속됐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지 못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도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야고보 세베대는 처음에, 모두 함께 무덤으로 가보자고 주장했으며; 신비스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야고보**의 주장에, 이런 때에 쓸데없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상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린 것은 **나다니엘**이었다. **야고보**는 정오 무렵에 안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으며;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출현하지 않음에 무척 실망했고, **주님**이 다른 집단과 개인에게 여러 번 출현했다는 것을 몰랐다.

안드레는 이날 거의 듣기만 했다. 그는 당시 상황 때문에 무척 당황했고 필요 이상으로 의심했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자유로운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마음 산란한 상황이 사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지도자로서의 짐을 **주님**이 덜어준 것에 대해 정말로 고마워했다.

비극적인 이날, 지루하고 지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집단에게 유일한 영향력

the city, but it did not occur to him to gather up news from the different groups of believers to whom Jesus had already appeared. That was the kind of service which had heretofore been rendered by the messengers of David, but they were all absent on their last assignment as heralds of the resurrection to those groups of believers who dwelt remote from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all these years the apostles realized how much they had been dependent on David's messengers for their daily information regarding the affairs of the kingdom.

191:0.4 (2037.4) All this day Peter characteristically vacillated emotionally between faith and doubt concerning the Master's resurrection. Peter could not get away from the sight of the grave cloths resting there in the tomb as if the body of Jesus had just evaporated from within. "But," reasoned Peter, "if he has risen and can show himself to the women, why does he not show himself to us, his apostles?" Peter would grow sorrowful when he thought that maybe Jesus did not come to them on account of his presence among the apostles, because he had denied him that night in Annas's courtyard. And then would he cheer himself with the word brought by the women, "Go tell my apostles — and Peter." But to derive encouragement from this message implied that he must believe that the women had really seen and heard the risen Master. Thus Peter alternated between faith and doubt throughout the whole day, until a little after eight o'clock, when he ventured out into the courtyard. Peter thought to remove himself from among the apostles so that he might not prevent Jesus' coming to them because of his denial of the Master.

191:0.5 (2037.5) James Zebedee at first advocated that they all go to the tomb; he was strongly in favor of doing someth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e mystery. It was Nathaniel who prevented them from going out in public in response to James's urging, and he did this by reminding them of Jesus' warning against unduly jeopardizing their lives at this time. By noontime James had settled down with the others to watchful waiting. He said little; he was tremendously disappointed because Jesus did not appear to them, and he did not know of the Master's many appearances to other groups and individuals.

191:0.6 (2038.1) Andrew did much listening this day. He was exceedingly perplexed by the situation and had more than his share of doubts, but he at least enjoyed a certain sense of freedom from responsibility for the guidance of his fellow apostles. He was indeed grateful that the Master had released him from the burdens of leadership before they fell upon these distracting times.

191:0.7 (2038.2) More than once during the long and weary hours of this tragic day, the only sustaining

을 끼치면서 지켜준 것은, **나다니엘**이 자주 제시한 특유한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열 명의 사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지 믿지 않는다는지 하는, 자기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믿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졌다.

열심당 시몬은 너무 낙심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벽을 향하고 누워 있었으며; 하루 종일 여섯 번 정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천국에 대한 그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주님**의 부활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매우 개인적이었고, 대체적으로 너무 심화돼서 빨리 회복될 수 없었으며, 부활이라는 그토록 엄청난 사실에 직면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늘 말이 없던 **빌립**이 이날 오후 내내 말을 많이 했다. 오전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후에는 다른 사도들에게 줄곧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에 자주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질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께서 정말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그의 몸에 십자가형의 흔적이 육체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특히 알고 싶어 했다.

마태는 매우 당황했으며; 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자신들의 자금 문제를 마음 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예정된 부활을 개의치 않고, **유다**는 떠나 버렸으며, **다윗**은 아무 절차 없이 자금을 그에게 넘겼고,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없게 됐다. **마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기도 전에,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다.

알패오 쌍둥이는 이런 심각한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습관적인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부활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머니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태도를 표현했다.

도마는, 그가 흔히 겪는, 절망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다시 빠졌다.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동산을 거닐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동료 사도들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첫 모론시아 출현을 연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그의

influence of the group was the frequent contribution of Nathaniel's characteristic philosophic counsel. He was really the controlling influence among the ten throughout the entire day. Never once did he express himself concerning either belief or disbelief in the Master's resurrection. But as the day wore on, he became increasingly inclined toward believing that Jesus had fulfilled his promise to rise again.

191:0.8 (2038.3) Simon Zelotes was too much crushed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Most of the time he reclined on a couch in a corner of the room with his face to the wall; he did not speak half a dozen times throughout the whole day. His concept of the kingdom had crashed, and he could not discern that the Master's resurrection could materially change the situation. His disappointment was very personal and altogether too keen to be recovered from on short notice, even in the face of such a stupendous fact as the resurrection.

191:0.9 (2038.4) Strange to record, the usually inexpressive Philip did much talking throughout the afternoon of this day. During the forenoon he had little to say, but all afternoon he asked questions of the other apostles. Peter was often annoyed by Philip's questions, but the others took his inquiries good-naturedly. Philip was particularly desirous of knowing, provided Jesus had really risen from the grave, whether his body would bear the physical marks of the crucifixion.

191:0.10 (2038.5) Matthew was highly confused; he listened to the discussions of his fellows but spent most of the time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problem of their future finances. Regardless of Jesus' supposed resurrection, Judas was gone, David had unceremoniously turned the funds over to him, and they were without an authoritative leader. Before Matthew got around to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their arguments about the resurrection, he had already seen the Master face to face.

191:0.11 (2038.6) The Alpheus twins took little part in these serious discussions; they were fairly busy with their customary ministrations. One of them expressed the attitude of both when he said, in reply to a question asked by Philip: "We do not understand about the resurrection, but our mother says she talked with the Master, and we believe her."

191:0.12 (2038.7) Thomas was in the midst of one of his typical spells of despairing depression. He slept a portion of the day and walked over the hills the rest of the time. He felt the urge to rejoin his fellow apostles, but the desire to be by himself was the stronger.

191:0.13 (2038.8) The Master put off the first morontia appearance to the apostles for a number of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아직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자 했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직접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의 특이한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랐다. 둘째, 그가 처음 출현할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요한 마가**는, 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 **도마**가 **베스페이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런 소식을 열한 시쯤 사도들에게 전했다. **나다니엘** 또는 누구든지 다른 두 사도가 그에게 갔다면, **도마**는 이날 언제든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전날 저녁에 떠날 때 취했던 자기 행동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도 무척 우울했으므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주를 기다려야 했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는 사도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서 같이 돌아가자고 청해 주기만 바랬다. 그리하여 **도마**는 그다음 토요일 저녁, 어두움이 깔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스페이지**로 와서 자신을 데리고 동역자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처음 출현한 후에 그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으며; 그들은 **도마** 없이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1.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예수께서 **마가**의 집 뜰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일요일 저녁 여덟 시 반쯤이었다. 이것은 그의 여덟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였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로 죄의식과 의심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지내왔다. 토요일과 이 일요일 내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씨름했다. 그는 **유다**의 비운에 몸서리쳤고, 심지어 자신 역시 **주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정말로 살아났다면, 자기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출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날 오후 내내 했다. 그리고 낙심한 사도가 바로 그런 기분과 혼의 상태에서 꽃밭 속을 거닐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안나스의 현관을 지나가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했을 때, 그리고 빈 무덤에서 달려 온 여자들이 그날 아침 일찍 자신에게 전한 엄청난 소식, 즉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라는 말이 마음 속에 떠오르자, 그것은 바로 자비의 징표라고 심사숙고했을 때, 그의 신앙이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똑바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소리쳤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앞에

reasons. First, he wanted them to have time, after they heard of his resurrection, to think well over what he had told them abou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hen he was still with them in the flesh. The Master wanted Peter to wrestle through with some of his peculiar difficulties before he manifested himself to them all. In the second place, he desired that Thomas should be with them at the time of his first appearance. John Mark located Thomas at the home of Simon in Bethpage early this Sunday morning, bringing word to that effect to the apostles about eleven o'clock. Any time during this day Thomas would have gone back to them if Nathaniel or any two of the other apostles had gone for him. He really wanted to return, but having left as he did the evening before, he was too proud to go back of his own accord so soon. By the next day he was so depressed that it required almost a week for him to make up his mind to return. The apostles waited for him, and he waited for his brethren to seek him out and ask him to come back to them. Thomas thus remained away from his associates until the next Saturday evening, when, after darkness had come on, Peter and John went over to Bethpage and brought him back with them. And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y did not go at once to Galilee after Jesus first appeared to them; they would not go without Thomas.

1. THE APPEARANCE TO PETER

191:1.1 (2039.1) It was near half past eight o'clock this Sunday evening when Jesus appeared to Simon Peter in the garden of the Mark home. This was his eighth morontia manifestation. Peter had lived under a heavy burden of doubt and guilt ever since his denial of the Master. All day Saturday and this Sunday he had fought the fear that, perhaps, he was no longer an apostle. He had shuddered at the fate of Judas and even thought that he, too, had betrayed his Master. All this afternoon he thought that it might be his presence with the apostles that prevented Jesus' appearing to them, provided, of course, he had really risen from the dead. And it was to Peter, in such a frame of mind and in such a state of soul, that Jesus appeared as the dejected apostle strolled among the flowers and shrubs.

191:1.2 (2039.2) When Peter thought of the loving look of the Master as he passed by on Annas's porch, and as he turned over in his mind that wonderful message brought him early that morning by the women who came from the empty tomb, "Go tell my apostles — and Peter" — as he contemplated these tokens of mercy, his faith began to surmount his doubts, and he stood still, clenching his fists, while he spoke aloud: "I believe he has risen from the dead; I will go and tell my brethren." And as he said this, there suddenly appeared in front of him

한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출현했고, 친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베드로**야, 적이 너를 노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했지만; 이제 너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때의 괴로움과 너 자신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천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시몬**아, 새 날의 전투, 사람의 천성적 정신 속에 있는 악한 불신과 영적 어두움과의 투쟁에 대비하거라.”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뜰을 같이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 거의 5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와 네 형제들을 같이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과 자신이 대화했다는 것과, 자신이 여전히 천국 대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잠겨 있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영화롭게 된 **주님**의 음성을 방금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마음 속에 솟아오르면서, 동료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흥분하여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쳤다: “내가 **주님**을 봤으며; 뜰에 계셨다. **주님**과 대화를 나눴으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

뜰에서 **예수**를 봤다는 **베드로**의 선언이 동료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으며, 그들이 의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일어나 동생의 말에 너무 영향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전에 실체가 아닌 것을 봤던 사실을 암시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다고 **베드로**가 주장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밤에 본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말했다. 형이 빗대서 한 말에 **시몬 베드로**는 무척 마음이 상했고, 즉시 풀이 죽어서 입을 다물었다. 쌍둥이 형제가 **베드로**를 매우 딱하게 여겼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 어머니 역시 **주님**을 봤다는 사실을 거둬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고 위로했다.

2.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심

그날 저녁 아홉 시 조금 지나서, **클레오파스**와 **야곱**이 떠난 후에, **알패오** 쌍둥이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나다니엘**이 **안드레**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 명의 사도가 다

the form of a man, who spoke to him in familiar tones, saying: “Peter, the enemy desired to have you, but I would not give you up. I knew it was not from the heart that you disowned me; therefore I forgave you even before you asked; but now must you cease to think about yourself and the troubles of the hour while you prepare to carry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No longer should you be concerned with what you may obtain from the kingdom but rather be exercised about what you can give to those who live in dire spiritual poverty. Gird yourself, Simon, for the battle of a new day, the struggle with spiritual darkness and the evil doubtings of the natural minds of men.”

191:1.3 (2039.3) Peter and the morontia Jesus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talked of things past, present, and future for almost five minutes. Then the Master vanished from his gaze, saying, “Farewell, Peter, until I see you with your brethren.”

191:1.4 (2039.4) For a moment, Peter was overcome by the realization that he had talked with the risen Master, and that he could be sure he was still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He had just heard the glorified Master exhort him to go on preaching the gospel. And with all this welling up within his heart, he rushed to the upper chamber and into the presence of his fellow apostles, exclaiming in breathless excitement: “I have seen the Master; he was in the garden. I talked with him, and he has forgiven me.”

191:1.5 (2040.1) Peter's declaration that he had seen Jesus in the garden made a profound impression upon his fellow apostles, and they were about ready to surrender their doubts when Andrew got up and warned them not to be too much influenced by his brother's report. Andrew intimated that Peter had seen things which were not real before. Although Andrew did not directly allude to the vision of the night on the Sea of Galilee wherein Peter claimed to have seen the Master coming to them walking on the water, he said enough to betray to all present that he had this incident in mind. Simon Peter was very much hurt by his brother's insinuations and immediately lapsed into crestfallen silence. The twins felt very sorry for Peter, and they both went over to express their sympathy and to say that they believed him and to reassert that their own mother had also seen the Master.

2. FIRST APPEARANCE TO THE APOSTLES

191:2.1 (2040.2) Shortly after nine o'clock that evening, after the departure of Cleopas and Jacob, while the Alpheus twins comforted Peter, and while Nathaniel remonstrated with Andrew, and as the ten apostles were there assembled in the upper

락방에 모두 모여서 붙잡힐까 두려워 모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모론시아 형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나타날 때, 너희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육체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제사장과 관리들이 나를 죽이게 되리라는 것과,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 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무슨 이유로 여자들과 **클레오파스**와 **야곱**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쟁하며 의심하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의심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지 않으려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지 않다. 너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음을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내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 바란다.”

모론시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사라진 **주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주님**의 아홉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3.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이튿날 월요일에는, 그때 **유란시아**에 있던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하루 온종일 보냈다. **주님**이 모론시아 전환을 체험할 때, 100만 이상의 모론시아 지휘자와 동역자가, 다양한 계층의 전환기 필사자들과 함께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 세계로부터 **유란시아**에 와 있었다. 모론시아 **예수**께서는 이 훌륭한 지성체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했고, 그 관리자들로부터, **사타니아**의 인간거주 세계들의 필사자가, 체계화된 모론시아 구체들을 통과할 때 지나가게 되는, 모론시아 전환 생애에 대하여 들었다.

이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님**의 모론시아 형체는 모론시아 진보의 둘째 단계로 전환되기 위해 조절됐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필사자 자녀들에게 다음에 출현했을 때, 그것은 둘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였다. 모론시아 생애에서 **주님**이 진보해 감에 따라, 필사자의 물질적 눈에 **주님**을 가시화(可視化)시키기가, 모론시아 지성체들 및 변형을 담당한 그 동역자들에게 점점 더 어렵게 됐다.

예수께서는 4월 14일 금요일에 셋째 모론시아 단계로 변환됐고; 17일 월요일에 넷째 단계로; 22일 토요일에 다섯째 단계로; 27일 목요일에 여섯째 단계로; 5월 2일 화요일에 일곱째 단계로; 7

chamber with all the doors bolted for fear of arrest, the Master, in morontia form, suddenly appeared in the midst of them, saying: “Peace be upon you. Why are you so frightened when I appear, as though you had seen a spirit? Did I not tell you about these things when I was present with you in the flesh? Did I not say to you t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would deliver me up to be killed, that one of your own number would betray me, and that on the third day I would rise? Wherefore all your doubtings and all this discussion about the reports of the women, Cleopas and Jacob, and even Peter? How long will you doubt my words and refuse to believe my promises? And now that you actually see me, will you believe? Even now one of you is absent. When you are gathered together once more, and after all of you know of a certainty that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grave, go hence into Galilee.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one another; and so shall you enter into the new service of the kingdom of heaven. I will tarry in Jerusalem with you until you are ready to go into Galilee. My peace I leave with you.”

191:2.2 (2040.3) When the morontia Jesus had spoken to them, he vanished in an instant from their sight. And they all fell on their faces, praising God and venerating their vanished Master. This was the Master's ninth morontia appearance.

3. WITH THE MORONTIA CREATURES

191:3.1 (2040.4) The next day, Monday, was spent wholly with the morontia creatures then present on Urantia. As participants in the Master's morontia-transition experience, there had come to Urantia more than one million morontia directors and associates, together with transition mortals of various orders from the seven mansion worlds of Satania. The morontia Jesus sojourned with these splendid intelligences for forty days. He instructed them and learned from their directors the life of morontia transition as it is traversed by the mortals of the inhabited worlds of Satania as they pass through the system morontia spheres.

191:3.2 (2041.1) About midnight of this Monday the Master's morontia form was adjusted for transition to the second stage of morontia progression. When he next appeared to his mortal children on earth, it was as a second-stage morontia being. As the Master progressed in the morontia career, it became, technically,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morontia intelligences and their transforming associates to visualize the Master to mortal and material eyes.

191:3.3 (2041.2) Jesus made the transit to the third stage of morontia on Friday, April 14; to the fourth stage on Monday, the 17th; to the fifth stage on Saturday, the 22nd; to the sixth stage on

일 일요일에는 **예루셈** 시민신분으로 변환했으며; 14일 일요일에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이뤄졌던 증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를, 성과 본부에 머무는 단계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대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기까지 이미 체험했으므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우주에서 체험하는 봉사를 이런 방법으로 완료했다. 그리고 **네바돈**의 **창조주 아들**께서는,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으로, 자신의 일곱째이자 마지막인 우주 증여를 완전히 끝내고 만족스럽게 종결지었다.

Thursday, the 27th; to the seventh stage on Tuesday, May 2; to Jerusalem citizenship on Sunday, the 7th; and he entered the embrace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on Sunday, the 14th.

191:3.4 (2041.3) In this manner did Michael of Nebadon complete his service of universe experience since he had already, in connection with his previous bestowals, experienced to the full the life of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and space from the sojourn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even on to, and through, the service of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it was by these very morontia experiences that the Creator Son of Nebadon really finished and acceptably terminated his seventh and final universe bestowal.

4.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필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난 **예수**의 열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는, 4월 11일 화요일 여덟 시 조금 지났을 무렵에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고, **아브넬**, **나사로**, 그리고 약 150명에 이르는 그 동역자들에게 거기서 자신을 나타냈는데, 70인 전도 단체 중에서도 50명 이상이 포함됐다. **예수**의 십자가형과, **다윗**의 심부름꾼이 전해 준 부활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소식에 대하여 토의하기 위해, **아브넬**이 소집한 회당에서의 특별 회의가 막 시작됐을 무렵에 이 출현이 이뤄졌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 신자들 무리의 일원(一員)이 됐으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고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회당에서 함께 단상에 선 **아브넬**과 **나사로**가 회의를 막 시작하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주님**의 형체를, 객석에 있던 모든 신자가 봤다. **아브넬**과 **나사로** 사이에서 나타났으므로, 두 사람은 그를 보지 못했고, **주님**이 거기서 걸어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천국 복음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곧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신앙으로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너희는 안다. 너희가 기쁨으로 복음에 충성할 때, 형제들을 향한 새롭고 더 큰 사랑이 너희의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진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페르시아인**이든지 **에디오피아인**이든지,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너희 모든 형제와 교제하되, 깊이 이해하는 동정심과 형

4. THE TENTH APPEARANCE (AT PHILADELPHIA)

191:4.1 (2041.4) The t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to mortal recognition occurred a short time after eight o'clock on Tuesday, April 11, at Philadelphia, where he showed himself to Abner and Lazarus and some one hundred and fifty of their associates, including more than fifty of the evangelistic corps of the seventy. This appearance occurred just after the opening of a special meeting in the synagogue which had been called by Abner to discuss the crucifixion of Jesus and the more recent report of the resurrection which had been brought by David's messenger. Inasmuch as the resurrected Lazarus was now a member of this group of believers, it was not difficult for them to believe the report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191:4.2 (2041.5) The meeting in the synagogue was just being opened by Abner and Lazarus, who were standing together in the pulpit, when the entire audience of believers saw the form of the Master appear suddenly. He stepped forward from where he had appeared between Abner and Lazarus, neither of whom had observed him, and saluting the company, said:

191:4.3 (2041.6) “Peace be upon you. You all know that we have one Father in heaven, and that there is but one gospel of the kingdom — the good news of the gift of eternal life which men receive by faith. As you rejoice in your loyalty to the gospel, pray the Father of truth to shed abroad in your hearts a new and greater love for your brethren. You are to love all men as I have loved you; you are to serve all men as I have served you. With understanding sympathy and brotherly affection, fellowship all your brethren who are dedica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news, whether they be Jew or gentile, Greek or Roman, Persian or Ethiopian. John proclaimed the kingdom in

제로서의 애정을 갖고 하라. **요한**이 선두에 서서 천국을 전파했으며; 너희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며; **그리스인**은 이미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영적 흑암 속에 앉아 있는 동료들에게 불을 밝히는 일에 애타적으로 삶을 바치는 내 모든 형제의 혼 속에, 내가 **진리의 영**을 곧 보낼 것이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이므로; 인간적인 의심과 편협성으로 잘못 이해하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를 사랑하는 고상함을 갖게 된다면, 널리 퍼져가는 신앙 가족에 속한 동료 신자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지 않겠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종족과 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항상 지혜롭게 하라.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에게 거저 나눠줘야 할 것이다.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악한 세력의 저항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각각의 경우에 그를 본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0명 이상의 신자가 동시에 그를 봤던, **갈릴리**에서 출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라델피아**에서 이 집단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도들이 **도마**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필라델피아**의 이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갔다.

다음날인 수요일에, **예수**께서는 모론시아 동역자들과 줄곧 교제하면서 보냈고, 오후 만나절 동안에는, **노라티아덱** 성좌 전역에서 인간거주 구체(球體)들이 속한 각 지방 체계 맨션 세계들로부터 방문한, 모론시아 대표자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창조주**께서 우주 지성체 중에서 자기네 계층처럼 되셨음을 알고 기뻐했다.

5. 사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도마는 **감람원** 근처 동산에서 혼자 고독한 한 주를 보냈다. 그동안 그는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과 **요한 마가**만 만났다. 두 사도가 찾아와서, 그들의 집합 장소인 **마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것은,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시쯤이었다. 다음 날 **도마**는 **주님**께서 여러 번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가 그

advance; you have preached the gospel in power; the Greeks already teach the good news; and I am soon to send forth the Spirit of Truth into the souls of all these, my brethren, who have so unselfishly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enlightenment of their fellows who sit in spiritual darkness. You are all the children of light; therefore stumble not into the misunderstanding entanglements of mortal suspicion and human intolerance. If you are ennobled, by the grace of faith, to love unbelievers, should you not also equally love those who are your fellow believers in the far-spreading household of faith? Remember, as you love one another,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191:4.4 (2042.1) “Go, then, in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to all nations and races and ever be wise in your choice of methods for presenting the good news to the different races and tribes of mankind. Freely you have received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you will freely give the good news to all nations. Fear not the resistance of evil, for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191:4.5 (2042.2) When he had said, “My peace I leave with you,”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With the exception of one of his appearances in Galilee, where upward of five hundred believers saw him at one time, this group in Philadelphia embraced the largest number of mortals who saw him on any single occasion.

191:4.6 (2042.3) Early the next morning, even while the apostles tarried in Jerusalem awaiting the emotional recovery of Thomas, these believers at Philadelphia went forth proclaiming that Jesus of Nazareth had risen from the dead.

191:4.7 (2042.4) The next day, Wednesday, Jesus spent without interruption in the society of his morontia associates, and during the midafternoon hours he received visiting morontia delegates from the mansion worlds of every local system of inhabited spheres throughout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And they all rejoiced to know their Creator as one of their own order of universe intelligence.

5. SECOND APPEARANCE TO THE APOSTLES

191:5.1 (2042.5) Thomas spent a lonesome week alone with himself in the hills around about Olivet. During this time he saw only those at Simon's house and John Mark. It was about nine o'clock on Saturday, April 15, when the two apostles found him and took him back with them to their rendezvous at the Mark home. The next day Thomas listened to the telling of the stories of the

들을 감동시켜서 마치 **주님**을 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습관적인 깊은 의심과 관련된 고집스런 감정이 작용했으며, 이런 마음 상태에 덧붙여서, 그들로부터 도망쳐 버렸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도마** 자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가버렸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돌아와서 같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취하려고 했다. 그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양보하기를 싫어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아했으며, 모든 동료가 자기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무의식중에 만족감을 얻었다. 그는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다.

오후 여섯 시 조금 지나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도마** 옆에 **베드로**가 앉고 다른 쪽에는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는데, 의심 많은 사도가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문들이 견고히 닫혔고, 그들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로시아 **주님**이 식탁 모서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로 **도마** 앞에 서서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가 모두 모였을 때 내가 다시 출현하여, 온 세계로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탁임무를 주려고, 내가 한 주 내내 기다렸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너희는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혼을 사랑하는 대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다만 하늘의 기쁨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명의 영적 실체도 보여줘야 한다. 너희가 신앙을 소유하고, 능력, 즉 **진리의 영**이 저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면, 닫혀있는 이 문들 뒤에 너희의 빛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인류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불쾌하게 체험한 사실로부터 피하고 있지만,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새로운 체험을 위해, 용감하고 기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통주의의 권위가 제공하는 잘못된 보호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최상의 실체들 속에 있는, 사실, 진리, 및 신앙의 권위에 의거한 새로운 질서로 옮겨가는 충격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곳과 **갈릴리**에 잠시 머물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 위에; 즉 너희뿐 아니라

Master's various appearances, but he steadfastly refused to believe. He maintained that Peter had enthused them into thinking they had seen the Master. Nathaniel reasoned with him, but it did no good. There was an emotional stubbornness associated with his customary doubtfulness, and this state of mind, coupled with his chagrin at having run away from them, conspired to create a situation of isolation which even Thomas himself did not fully understand. He had withdrawn from his fellows, he had gone his own way, and now, even when he was back among them, he unconsciously tended to assume an attitude of disagreement. He was slow to surrender; he disliked to give in. Without intending it, he really enjoyed the attention paid him; he derived unconscious satisfaction from the efforts of all his fellows to convince and convert him. He had missed them for a full week, and he obtained considerable pleasure from their persistent attentions.

191:5.2 (2042.6) They were having their evening meal a little after six o'clock, with Peter sitting on one side of Thomas and Nathaniel on the other, when the doubting apostle said: "I will not believe unless I see the Master with my own eyes and put my finger in the mark of the nails." As they thus sat at supper, and while the doors were securely shut and barred, the morontia Master suddenly appeared inside the curvature of the table and, standing directly in front of Thomas, said:

191:5.3 (2043.1) "Peace be upon you. For a full week have I tarried that I might appear again when you were all present to hear once more the commiss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is gospel of the kingdom. Again I tell you: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send I you. As I have revealed the Father, so shall you reveal the divine love, not merely with words, but in your daily living. I send you forth, not to love the souls of men, but rather to love men. You are not merely to proclaim the joys of heaven but also to exhibit in your daily experience these spirit realities of the divine life since you already have eternal life, as the gift of God, through faith. When you have faith, when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of Truth, has come upon you, you will not hide your light here behind closed doors; you will make known the love and the mercy of God to all mankind. Through fear you now flee from the facts of a disagreeable experience, but when you shall have been baptized with the Spirit of Truth, you will bravely and joyously go forth to meet the new experiences of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in the kingdom of God. You may tarry here and in Galilee for a short season while you recover from the shock of the transition from the false security of the authority of traditionalism to the new order of the authority of facts, truth, and faith in the supreme realities of living experience. Your mission to the world is founded on the fact that I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될 삶 속에--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체험 속에-- 있을 것이다. 신앙으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진리의 계시가, 전통 때문에 멀어 있는 눈을 뜨게 하라;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무지로 인해 발생된 선입관을 효과적으로 없애라. 너희는 깊이 이해하는 연민의 정과 사심 없는 헌신으로 너희의 친구에게 다가감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경의를 표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유대인**은 선을 찬양하고; **그리스인**은 미를 칭송하며; **힌두인**은 헌신을 전파하고; 먼 옛날 금욕주의자는 위엄을 가르쳤으며; **로마인**은 충성을 요구했지만; 나는, 정말로 육신 속의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내 제자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친 **주님**은 **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못 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 **도마**야, 이제는 내가 나를 봤고 내 말을 들었으며;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희에게도 임할 그 형제로 내가 살아났으므로, 너는 내 손에서 못 자국을 보지 못하겠지만, 네 형제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려느냐? 네가 그토록 완강하게 믿지 않을 때에도 네 마음 속으로는 이미 믿기 시작했으므로,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네 의심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항상 아주 완강하게 버티려고 한다. **도마**야, 네게 명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그리고 나는 네가 전심으로 믿게 될 것을 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모른시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믿습니다! 내 **주**여 내 **주님**이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다: “**도마**야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 앞으로 다가올 시절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필사자의 귀로 듣지 못함에도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형제는 식탁 상석 쪽으로 가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했다: “이제 너희 모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열한 사도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됐으며,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갈릴리**를 향해 길을 떠났다.

6.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열한 사도가 **갈릴리**로 출발해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오후

lived a God-revealing life among you; on the truth that you and all other men are the sons of God; and it shall consist in the life which you will live among men — the actual and living experience of loving men and serving them, even as I have loved and served you. Let faith reveal your light to the world; let the revelation of truth open the eyes blinded by tradition; let your loving service effectually destroy the prejudice engendered by ignorance. By so drawing close to your fellow men in understanding sympathy and with unselfish devotion, you will lead them into a saving knowledge of the Father's love. The Jews have extolled goodness; the Greeks have exalted beauty; the Hindus preach devotion; the faraway ascetics teach reverence; the Romans demand loyalty; but I require of my disciples life, even a life of loving service for your brothers in the flesh.”

191:5.4 (2043.2) When the Master had so spoken, he looked down into the face of Thomas and said: “And you, Thomas, who said you would not believe unless you could see me and put your finger in the nail marks of my hands, have now beheld me and heard my words; and though you see no nail marks on my hands, since I am raised in the form that you also shall have when you depart from this world, what will you say to your brethren? You will acknowledge the truth, for already in your heart you had begun to believe even when you so stoutly asserted your unbelief. Your doubts, Thomas, always most stubbornly assert themselves just as they are about to crumble. Thomas, I bid you be not faithless but believing — and I know you will believe, even with a whole heart.”

191:5.5 (2043.3) When Thomas heard these words, he fell on his knees before the morontia Master and exclaimed, “I believe! My Lord and my Master!” Then said Jesus to Thomas: “You have believed, Thomas, because you have really seen and heard me. Blessed are those in the ages to come who will believe even though they have not seen with the eye of flesh nor heard with the mortal ear.”

191:5.6 (2043.4) And then, as the Master's form moved over near the head of the table, he addressed them all, saying: “And now go all of you to Galilee, where I will presently appear to you.” After he said this,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1:5.7 (2044.1) The eleven apostles were now fully convinc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and very early the next morning, before the break of day, they started out for Galilee.

6. THE ALEXANDRIAN APPEARANCE

191:6.1 (2044.2) While the eleven apostles were on the way to Galilee, drawing near their journey's

여덟 시 반쯤에, 예수께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을 비롯하여 80여명의 다른 신자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님이 모로시아 형체로 나타난 열두 번째 사건이었다. 다윗의 심부름꾼이 십자가형에 대한 보고를 막 마쳤을 때, 예수께서 이 그리스인과 유대인 앞에 나타났다. 이 심부름꾼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에서 연계식(連繫式)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다섯째 사람이었으며, 그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여 로단에게 소식을 전하자, 이 비극적인 말을 그 심부름꾼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전체 신자를 소집하자고 결정했었다. 여덟 시쯤 되어, 부시리스의 나단이라는 심부름꾼이 이 집단 앞에 나와, 앞사람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단은 감동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로시아 주님이 거기에 출현했다. 그리고 나단이 자리에 앉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세우시려는 것은, 한 종족이나 국가 또는 특정한 무리의 선생이나 전도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한 자나 속박당한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해당된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 속에서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 놀라운 애정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 나라의 신앙 친구가 됐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해, 너희 삶에서 발견하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모두,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 이 천국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했으며; 단지 사제들의 역할에만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여러 시대가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이 신자들은 그날 밤 내내 거기에 함께 남아서, 천국을 믿는 자로서의 체험을 서로 이야기했고, 로단과 그 동역자들의 많은 말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이날로부터 이들이 지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사자(使者)가 도착했는데, 그 사자가 전해 준 소식에 대해 그들이, “그렇다, 우리는 그를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end, on Tuesday evening, April 18, at about half past eight o'clock, Jesus appeared to Rodan and some eighty other believers, in Alexandria. This was the Master's twelfth appearance in morontia form. Jesus appeared before these Greeks and Jews at the conclusion of the report of David's messenger regarding the crucifixion. This messenger, being the fifth in the Jerusalem-Alexandria relay of runners, had arrived in Alexandria late that afternoon, and when he had delivered his message to Rodan, it was decided to call the believers together to receive this tragic word from the messenger himself. At about eight o'clock, the messenger, Nathan of Busiris, came before this group and told them in detail all that had been told him by the preceding runner. Nathan ended his touching recital with these words: “But David, who sends us this word, reports that the Master, in foretelling his death, declared that he would rise again.” Even as Nathan spoke, the morontia Master appeared there in full view of all. And when Nathan sat down, Jesus said:

191:6.2 (2044.3) “Peace be upon you. That which my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to establish belongs not to a race, a nation, nor to a special group of teachers or preachers. This gospel of the kingdom belongs to both Jew and gentile, to rich and poor, to free and bond, to male and female, even to the little children. And you are all to proclaim this gospel of love and truth by the lives which you live in the flesh. You shall love one another with a new and startling affection, even as I have loved you. You will serve mankind with a new and amazing devotion, even as I have served you. And when men see you so love them, and when they behold how fervently you serve them, they will perceive that you have become faith-fellow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y will follow after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y see in your lives, to the finding of eternal salvation.

191:6.3 (2044.4)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even so now send I you. You are all called to carry the good news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This gospel of the kingdom belongs to all who believe it; it shall not be committed to the custody of mere priests. Soon will the Spirit of Truth come upon you, and he shall lead you into all truth. Go you, therefore,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191:6.4 (2044.5) When the Master had so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All that night these believers remained there together recounting their experiences as kingdom believers and listening to the many words of Rodan and his associates. And they all believ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Imagine the surprise of David's herald of the resurrection, who arrived the second day after this, when they replied to his announcement, saying:

예수께서 그저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대답
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Yes, we know, for we have seen him. He
appeared to us day before yesterday.”

제 192편. 갈릴리에 나타나심

⇨ 191

유랜시아 책

193 ⇨

IV 부. 예수와 생애와 교훈

제 192편
갈릴리에 나타나심

섹션

소개

1. 호숫가에서 나타나심
2. 두 사람씩 사도들과 이야기하심
3.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4. 호숫가에 모임

PAPER 192
APPEARANCES I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Appearance by the Lake
2. Visiting with the Apostles Two and Two
3. On the Mount of Ordination
4. The Lakeside Gathering

소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떠날 때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은 비교적 침묵을 지켰다. 오직 천국을 믿는 집단에게만 **예수**께서 출현했으므로,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 있었고 공개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 관리들은 복음 운동이 결국 효과적으로 분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당황했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를, 뇌물로 매수한 경비병들이 퍼뜨리게 함으로써, 그런 모든 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때부터, 박해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도들이 흩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로 인식됐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었고, 동료 사도들도 공식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그를 선출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이의 없이, 그리고 그가 수석{首席}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고수했다. 이때부터 대중 전도가 사도들의 주요 업무가 됐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대신 선택된 **맛디아**가 그들의 회계원이 됐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던 그 주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무는 여 신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INTRODUCTION

192:0.1 (2045.1) BY THE time the apostles left Jerusalem for Galilee, the Jewish leaders had quieted down considerably. Since Jesus appeared only to his family of kingdom believers, and since the apostles were in hiding and did no public preaching, the rulers of the Jews concluded that the gospel movement was, after all, effectually crushed. They were, of course, disconcerted by the increasing spread of rumors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but they depended upon the bribed guards effectively to counteract all such reports by their reiteration of the story that a band of his followers had removed the body.

192:0.2 (2045.2) From this time on, until the apostles were dispersed by the rising tide of persecution, Peter was the generally recognized head of the apostolic corps. Jesus never gave him any such authority, and his fellow apostles never formally elected him to such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he naturally assumed it and held it by common consent and also because he was their chief preacher. From now on public preaching became the main business of the apostles. After their return from Galilee, Matthias, whom they chose to take the place of Judas, became their treasurer.

192:0.3 (2045.3) During the week they tarried in Jerusalem, Mary the mother of Jesus spent much of the time with the women believers who were

월요일 아침 일찍, 사도들이 **갈릴리**로 떠날 때, **요한 마가**도 동행했다. 그는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 뒤에서 따라가다가, **베다니**를 한참 지나간 후에는, 그들이 자기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면서, 대담하게 그들과 섞여서 걸어갔다.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종종 멈췄으므로, 수요일 아주 늦은 밤에야 **벳새다**에 도착했다. 그들 모두 잠에서 깨어, 아침 먹을 준비를 한 것은 목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1. 호숫가에서 나타나심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여섯 시쯤에, 열 명의 사도를 태운 배가, 늘 배를 대던 **벳새다** 해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른시아 **주님**이 열세 번째로 나타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도들이 **세베대**의 집에서 대기하면서 목요일 오후와 초저녁을 보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제안하자, 사도들 모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 여러 흥미로운 체험, 즉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근에 자신에게 생긴 일을 이야기했으므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벳새다**로 돌아가기로 했다. 해변 가까이 왔을 때, 배를 대는 곳 근처 해변에, 모닥불 옆에서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가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 거기에 온 **요한 마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변에 가까이 가자,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요한**이라고 하기에는 키가 너무 컸다. 아무도 해변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포와 배반과 죽음에 비극적으로 관련된 **예루살렘**의 밀폐된 공간에서 멀리 떠나, **주님**이 그들과 초기에 함께 했던 그 현명한 가운데서, 그리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야외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주님**은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했었으며, 그 약속이 곧 이뤄지게 됐다.

그들이 닻을 내리고, 물가로 나가기 위해 작은 배를 준비할 때, 해변에서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여보시오, 무엇을 좀 잡았소?”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요.” 그들은 자신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예수**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한 마음이 돼서 지시 받은 대로 그물을 던졌고, 즉시 그물이 가득 차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

stopping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192:0.4 (2045.4) Early this Monday morning when the apostles departed for Galilee, John Mark went along. He followed them out of the city, and when they had passed well beyond Bethany, he boldly came up among them, feeling confident they would not send him back.

192:0.5 (2045.5) The apostles paused several times on the way to Galilee to tell the story of their risen Master and therefore did not arrive at Bethsaida until very late on Wednesday night. It was noontime on Thursday before they were all awake and ready to partake of breakfast.

1. APPEARANCE BY THE LAKE

192:1.1 (2045.6) About six o'clock Friday morning, April 21, the morontia Master made his thirteenth appearance, the first in Galilee, to the ten apostles as their boat drew near the shore close to the usual landing place at Bethsaida.

192:1.2 (2045.7) After the apostles had spent the afternoon and early evening of Thursday in waiting at the Zebedee home, Simon Peter suggested that they go fishing. When Peter proposed the fishing trip, all of the apostles decided to go along. All night they toiled with the nets but caught no fish. They did not much mind the failure to make a catch, for they had many interesting experiences to talk over, things which had so recently happened to them at Jerusalem. But when daylight came, they decided to return to Bethsaida. As they neared the shore, they saw someone on the beach, near the boat landing, standing by a fire. At first they thought it was John Mark, who had come down to welcome them back with their catch, but as they drew nearer the shore, they saw they were mistaken — the man was too tall for John. It had occurred to none of them that the person on the shore was the Master. They did not altogether understand why Jesus wanted to meet with them amidst the scenes of their earlier associations and out in the open in contact with nature, far away from the shut-in environment of Jerusalem with its tragic associations of fear, betrayal, and death. He had told them that, if they would go into Galilee, he would meet them there, and he was about to fulfill that promise.

192:1.3 (2046.1) As they dropped anchor and prepared to enter the small boat for going ashore, the man on the beach called to them, “Lads, have you caught anything?” And when they answered, “No,” he spoke again. “Cast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fish.” While they did not know it was Jesus who had directed them, with one accord they cast in the net as they had been instructed, and immediately it was filled, so much so that they were hardly able to draw it up. Now,

때 **요한 세베데**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물을 보는 순간 언뜻 생각나서, 자기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주님**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생각이 마음 속에 떠오르자, **베드로**에게 몸을 굽혀서 “저 분이 **주님**이시라”고 속삭였다. **베드로**는 항상 경솔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몰두했으므로, **요한**이 자기 귀에 속삭이는 이 말을 듣자, **주님** 옆으로 최대한 빨리 가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형제들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은 그물을 끌면서 해변으로 나왔다.

이 때 **요한 마가**는 일어나 있었고,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오는 사도들을 보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해변으로 달려갔으며; 열 사람이 아니라 열한 사람이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활한 **예수**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열 명의 사도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옆에서 있을 때, 소년이 **주님**께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여!”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인사할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과 달리, **요한 마가**에게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했다: “그래, **요한**아, 너를 다시 만나니 반가우며, 우리가 편안히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갈릴리**에 있게 되어 기쁘다. **요한**아, 우리와 함께 남아서 아침을 먹도록 하자.”

예수께서 소년에게 말씀하는 동안, 열 사도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라. 이미 모닥불과 많은 빵이 준비돼 있다.”

요한 마가가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베드로**는 해변에 숯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으며; 그 광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한 밤중에 타고르던 숯불이 생생하게 기억났으나,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주님**이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료들과 합세했다. 그들이 잡은 고기를 땅에 풀어 놓고 썬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였다. 그리고 이것을 물고기를 잡은 또 다른 기적이라고 부르는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에는 아무 기적도 없었다. 그것은 다만, **주님**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뿐이었다. 그는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물을 거기에 던지라고 지시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이제 너희 모두 와서 아침을 먹자.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 형제도 여기 앉아라; **요한 마가**가 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요한 마가**가 알맞은 크기의 생선 일곱 마리를 가져왔고, **주님**이 그것을 불에 올려놓으며, 잘 익은 후에, 소년이 열 명에게 배분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빵을 떼어 **요한**에게 주셨고, 그

John Zebedee was quick of perception, and when he saw the heavy-laden net, he perceived that it was the Master who had spoken to them. When this thought came into his mind, he leaned over and whispered to Peter, “It is the Master.” Peter was ever a man of thoughtless action and impetuous devotion; so when John whispered this in his ear, he quickly arose and cast himself into the water that he might the sooner reach the Master’s side. His brethren came up close behind him, having come ashore in the small boat, hauling the net of fishes after them.

192:1.4 (2046.2) By this time John Mark was up and, seeing the apostles coming ashore with the heavy-laden net, ran down the beach to greet them; and when he saw eleven men instead of ten, he surmised that the unrecognized one was the risen Jesus, and as the astonished ten stood by in silence, the youth rushed up to the Master and, kneeling at his feet, said, “My Lord and my Master.” And then Jesus spoke, not as he had in Jerusalem, when he greeted them with “Peace be upon you,” but in commonplace tones he addressed John Mark: “Well, John, I am glad to see you again and in carefree Galilee, where we can have a good visit. Stay with us, John, and have breakfast.”

192:1.5 (2046.3) As Jesus talked with the young man, the ten were so astonished and surprised that they neglected to haul the net of fish in upon the beach. Now spoke Jesus: “Bring in your fish and prepare some for breakfast. Already we have the fire and much bread.”

192:1.6 (2046.4) While John Mark had paid homage to the Master, Peter had for a moment been shocked at the sight of the coals of fire glowing there on the beach; the scene reminded him so vividly of the midnight fire of charcoal in the courtyard of Annas, where he had disowned the Master, but he shook himself and, kneeling at the Master’s feet, exclaimed, “My Lord and my Master!”

192:1.7 (2046.5) Peter then joined his comrades as they hauled in the net. When they had landed their catch, they counted the fish, and there were 153 large ones. And again was the mistake made of calling this another miraculous catch of fish. There was no miracle connected with this episode. It was merely an exercise of the Master’s preknowledge. He knew the fish were there and accordingly directed the apostles where to cast the net.

192:1.8 (2047.1) Jesus spoke to them, saying: “Come now, all of you, to breakfast. Even the twins should sit down while I visit with you; John Mark will dress the fish.” John Mark brought seven good-sized fish, which the Master put on the fire, and when they were cooked, the lad served them to the ten. Then Jesus broke the bread and handed it to

가 시장한 사도들에게 나눠줬다. 그들이 모두 음식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 마가**에게 앉으라고 지시하고, 손수 물고기와 빵을 소년에게 가져다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과 이야기했으며, 바로 이 호수 주변과 **갈릴리**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를 회상했다.

이것은 사도들 전체에게 자신을 나타낸 세 번째 경우였다.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누군지에 대해 의심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육지로 다가올 때, **다리키아**의 어물상(魚物商)이 햇빛에 말릴 싱싱한 고기를 직접 구입하려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 어부들이 늘 경험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열 명의 사도 및 **요한 마가**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두 명씩 나누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변을 거닐었다--그러나 처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내보내서 가르치게 했을 때와 똑같은 사람끼리 짝 짓게 하시지는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에는 열한 사도가 함께 왔지만, **열심당 시몬**은 **갈릴리**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낙담해서, **벳새다**에 도착한 후에는 형제들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날 아침에 그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자원하는 두 사람이 **열심당 시몬**에게 가서 그날 당장 그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다.

John, who in turn served it to the hungry apostles. When they had all been served, Jesus bade John Mark sit down while he himself served the fish and the bread to the lad. And as they ate, Jesus visited with them and recounted their many experiences in Galilee and by this very lake.

192:1.9 (2047.2) This was the third time Jesus had manifested himself to the apostles as a group. When Jesus first addressed them, asking if they had any fish, they did not suspect who he was because it was a common experience for these fishermen on the Sea of Galilee, when they came ashore, to be thus accosted by the fish merchants of Tarichea, who were usually on hand to buy the fresh catches for the drying establishments.

192:1.10 (2047.3) Jesus visited with the ten apostles and John Mark for more than an hour, and then he walked up and down the beach, talking with them two and two — but not the same couples he had at first sent out together to teach. All eleven of the apostles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together, but Simon Zelotes grew more and more despondent as they drew near Galilee, so that, when they reached Bethsaida, he forsook his brethren and returned to his home.

192:1.11 (2047.4) Before taking leave of them this morning, Jesus directed that two of the apostles should volunteer to go to Simon Zelotes and bring him back that very day. And Peter and Andrew did so.

2. 두 사람씩 사도들과 이야기하심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손짓으로 불러서, 함께 해변을 거닐자고 했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요한**이 “예,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했다: “**요한**아, 그러면, 네 편협성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워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구원을 추구하도록 사람을 제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선(善)의 원조이며, 진실과 아름다움의 본질 요소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내 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양을 먹여라.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 자를 무시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편애(偏愛)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는

2. VISITING WITH THE APOSTLES TWO AND TWO

192:2.1 (2047.5) 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and while the others sat by the fire, Jesus beckoned to Peter and to John that they should come with him for a stroll on the beach. As they walked along, Jesus said to John, “John, do you love me?” And when John answered, “Yes, Master, with all my heart,” the Master said: “Then, John, give up your intolerance and learn to love men as I have loved you. Devote your life to proving that love is the greatest thing in the world. It is the love of God that impels men to seek salvation. Love is the ancestor of all spiritual goodness, the essence of the true and the beautiful.”

192:2.2 (2047.6) Jesus then turned toward Peter and asked, “Peter, do you love me?” Peter answered, “Lord, you know I love you with all my soul.” Then said Jesus: “If you love me, Peter, feed my lambs. Do not neglect to minister to the weak, the poor, and the young. Preach the gospel without fear or favor; remember always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Serve your fellow men even as I have served you; forgive your fellow mortals even as I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는 네 동료를 섬기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 필사자를 용서해라. 목상의 가치와 지적으로 숙고하는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잘 배워라.”

조금 더 걸어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했다, “그러면 내 양을 잘 보살피라. 양 무리에겐 선하고 참된 목자가 돼라. 너를 신뢰하는 그들을 배반하지 마라. 적의 손에 기습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주의해라--깨어 기도해라.”

몇 발자국 더 걸어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며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자기를 믿지 못하는 듯한 **주님**의 태도에 약간 슬퍼하면서,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양을 먹여라. 그 무리를 버리지 마라. 네 모든 동료 목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화시키는 사람이 돼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양 무리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즉 자신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라고 **예수**에게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음을 알고 말씀했다, “**베드로**야, 네 형제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 다만 너는 확실하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두루 퍼졌고, 천국이 영광과 능력으로 이뤄지기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희망한 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열심당 시몬**이 본연의 봉사업무로 돌아와서 계속 일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이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다. 조금 걸어난 후에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물었다, “**안드레**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전에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던 그는, **예수**의 그런 질문을 듣고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예, **주님**, 나는 결단코 당신을 신뢰하며, 내가 그런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을--**베드로**까지도--더욱 신뢰하거라. 나는 한때 형제들에 대한 너의 지도력을 신뢰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너를 떠나지만, 너는 다른 형제들을 신뢰해야

have forgiven you. Let experience teach you the value of meditation and the power of intelligent reflection.”

192:2.3 (2047.7) After they had walked along a little farther, the Master turned to Peter and asked, “Peter, do you really love me?” And then said Simon,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again said Jesus: “Then take good care of my sheep. Be a good and a true shepherd to the flock. Betray not their confidence in you. Be not taken by surprise at the enemy’s hand. Be on guard at all times — watch and pray.”

192:2.4 (2047.8) When they had gone a few steps farther, Jesus turned to Peter and, for the third time, asked, “Peter, do you truly love me?” And then Peter, being slightly grieved at the Master’s seeming distrust of him, said with considerable feeling, “Lord, you know all things, and therefore do you know that I really and truly love you.” Then said Jesus: “Feed my sheep. Do not forsake the flock. Be an example and an inspiration to all your fellow shepherds. Love the flock as I have loved you and devote yourself to their welfare even as I have devoted my life to your welfare. And follow after me even to the end.”

192:2.5 (2048.1) Peter took this last statement literally — that he should continue to follow after him — and turning to Jesus, he pointed to John, asking, “If I follow on after you, what shall this man do?” And then, perceiving that Peter had misunderstood his words, Jesus said: “Peter, be not concerned about what your brethren shall do. If I will that John should tarry after you are gone, even until I come back, what is that to you? Only make sure that you follow me.”

192:2.6 (2048.2) This remark spread among the brethren and was received as a statement by Jesus to the effect that John would not die before the Master returned, as many thought and hoped, to establish the kingdom in power and glory. It was this interpretation of what Jesus said that had much to do with getting Simon Zelotes back into service, and keeping him at work.

192:2.7 (2048.3) When they returned to the others, Jesus went for a walk and talk with Andrew and James. When they had gone a short distance, Jesus said to Andrew, “Andrew, do you trust me?” And when the former chief of the apostles heard Jesus ask such a question, he stood still and answered, “Yes, Master, of a certainty I trust you, and you know that I do.” Then said Jesus: “Andrew, if you trust me, trust your brethren more — even Peter. I once trusted you with the leadership of your brethren. Now must you trust others as I leave you to go to the Father. When your brethren begin to scatter abroad because of

한다. 혹독한 박해로 인해 네 형제들이 멀리 흩어지게 된 후에, 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아직 체험이 부족해서 견딜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이 그에게 지우려고 할 때, 그에게 신중하고 현명한 협조자가 돼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라. 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야고보**를 향해 물었다: “**야고보**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물론 **야고보**는, “예, **주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야고보**야, 네가 나를 더욱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신자들의 형제단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배워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라. 영의 평온함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심을 길러라. 희생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올 때,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이 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결코 당황하지 마라; 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다음에 **도마**와 **나다니엘**과 이야기했다. 그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도마**는, “예, **주여**, 나는 언제나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육신 속의 내 형제들을 섬겨라. 그리고 이 선행에 지치지 말고, 이 사랑의 봉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인내해라. 네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는 봉사를 마치면,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섬기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너는 의심을 멈춰야 하며; 진리를 아는 지식과 신앙이 자라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유치한 행동은 멈춰라. 용기를 가지며; 신앙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가 돼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아,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예, **주님**, 온전한 애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렇다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긴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네가 조언할 때 우정과 함께 하고, 네 철학에 사랑을 더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동료들을 섬겨라. 내가 너를 돌봐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충실하게라. 비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정도를 낮춤으로써, 네 실망을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서 하던 일을 마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저 높은 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님**은 **마태**와 **빌립**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했다. **빌립**은 “예, **주여**, 당신이 제 생명을 바치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라.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선지

bitter persecutions, be a considerate and wise counselor to James my brother in the flesh when they put heavy burdens upon him which he is not qualified by experience to bear. And then go on trusting, for I will not fail you. When you are through on earth, you shall come to me.”

192:2.8 (2048.4) Then Jesus turned to James, asking, “James, do you trust me?” And of course James replied, “Yes, Master, I trust you with all my heart.” Then said Jesus: “James, if you trust me more, you will be less impatient with your brethren. If you will trust me, it will help you to be kind to the brotherhood of believers. Learn to weigh the consequences of your sayings and your doings. Remember that the reap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sowing. Pray for tranquillity of spirit and cultivate patience. These graces, with living faith, shall sustain you when the hour comes to drink the cup of sacrifice. But never be dismayed; when you are through on earth, you shall also come to be with me.”

192:2.9 (2048.5) Jesus next talked with Thomas and Nathaniel. Said he to Thomas, “Thomas, do you serve me?” Thomas replied, “Yes, Lord, I serve you now and always.” Then said Jesus: “If you would serve me, serve my brethren in the flesh even as I have served you. And be not weary in this well-doing but persevere as one who has been ordained by God for this service of love. When you have finished your service with me on earth, you shall serve with me in glory. Thomas, you must cease doubting; you must grow in faith and the knowledge of truth. Believe in God like a child but cease to act so childishly. Have courage; be strong in faith and mighty in the kingdom of God.”

192:2.10 (2049.1) Then said the Master to Nathaniel, “Nathaniel, do you serve me?” And the apostle answered, “Yes, Master, and with an undivided affection.” Then said Jesus: “If, therefore, you serve me with a whole heart, make sure that you are devoted to the welfare of my brethren on earth with tireless affection. Admix friendship with your counsel and add love to your philosophy. Serve your fellow men even as I have served you. Be faithful to men as I have watched over you. Be less critical; expect less of some men and thereby lessen the extent of your disappointment. And when the work down here is over, you shall serve with me on high.”

192:2.11 (2049.2) After this the Master talked with Matthew and Philip. To Philip he said, “Philip, do you obey me?” Philip answered, “Yes, Lord, I will obey you even with my life.” Then said Jesus: “If you would obey me, go then into the lands of the gentiles and proclaim this gospel. The prophets have told you that to obey is better than to

자들의 말을 들었다. 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천국 아들이 됐다. 순종해야 할 법이 오직 한 가지 있다--그것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진리의 빛에 굶주리고 흑암 속에서 변민하는 동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필립**아, 너는 더 이상 돈과 재물을 위해 바쁘게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형제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쁜 소식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권한을 받았다. 내가 네 앞에 갈 것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에게 말씀하면서, "**마태**야, 너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물었다. **마태**는 "예, **주**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했다: "**마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라. 너는 더 이상 네 형제들에게 물질적 생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부터 너도 영적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이제부터는 오직 **아버지**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위탁임무에만 전념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 같이, 너도 신성한 위탁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네 형제임을 명심하라. 너는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알패오** 쌍둥이, **아고보**와 **유다**에게 가서, 두 사람에게 물었다: "**아고보**와 **유다**야, 너희는 나를 믿느냐?" 두 사람이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가 말씀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미 너희를 떠났음을 너희가 안다. 나는 내 **아버지** 계로 가기 전에, 이런 형제로 잠시만 머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었다--너희는 내 사도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 했던 일로 돌아가더라도, 나와 교제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희의 충성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신앙 아들일 때, 그 영역의 모든 정직한 업무가 신성시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일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 너희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더 좋은 다른 세계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들에서, 나는 너희와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알패오** 쌍둥이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것은 거의 열 시가 됐을 무렵이었으며, 사도들을 떠나면서, "너희의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내일 정오에 너희 모두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sacrifice. By faith have you become a God-knowing kingdom son. There is but one law to obey — that is the command to go forth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Cease to fear men; be unafraid to preach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to your fellows who languish in darkness and hunger for the light of truth. No more, Philip, shall you busy yourself with money and goods. You now are free to preach the glad tidings just as are your brethren. And I will go before you and be with you even to the end."

192:2.12 (2049.3) And then, speaking to Matthew, the Master asked, "Matthew, do you have it in your heart to obey me?" Matthew answered, "Yes, Lord, I am fully dedicated to doing your will." Then said the Master: "Matthew, if you would obey me, go forth to teach all peoples this gospel of the kingdom. No longer will you serve your brethren the material things of life; henceforth you are also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spiritual salvation. From now on have an eye single only to obeying your commission to preach this gospel of the Father's kingdom. As I have done the Father's will on earth, so shall you fulfill the divine commission. Remember, both Jew and gentile are your brethren. Fear no man when you proclaim the sav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ere I go, you shall presently come."

192:2.13 (2049.4) Then he walked and talked with the Alpheus twins, James and Judas, and speaking to both of them, he asked, "James and Judas, do you believe in me?" And when they both answered, "Yes, Master, we do believe," he said: "I will soon leave you. You see that I have already left you in the flesh. I tarry only a short time in this form before I go to my Father. You believe in me — you are my apostles, and you always will be. Go on believing and remembering your association with me, when I am gone, and after you have, perchance, returned to the work you used to do before you came to live with me. Never allow a change in your outward work to influence your allegiance. Have faith in God to the end of your days on earth. Never forget that, when you are a faith son of God, all upright work of the realm is sacred. Nothing which a son of God does can be common. Do your work, therefore, from this time on, as for God. And when you are through on this world, I have other and better worlds where you shall likewise work for me. And in all of this work, on this world and on other worlds, I will work with you, and my spirit shall dwell within you."

192:2.14 (2049.5) It was almost ten o'clock when Jesus returned from his visit with the Alpheus twins, and as he left the apostles, he said: "Farewell, until I meet you all on the mount of your ordination tomorrow at noontime." When he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3.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4월 22일 토요일 정오에, 열한 사도는 약속대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언덕에 모였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번 만남은, **예수**께서 그들을, **주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나라의 대사로서 파견했던 바로 그 산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열네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였다.

이때 열한 사도는 **주님** 주위에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고, 천국의 특별 업무를 위해 처음 파견됐을 때처럼 임직식 장면을 재연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 전에 가졌던 임직식에 대한 기억과 동일했다. **주님**께서--곧 모론시아 **예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의 말씀과 함께 그의 음성은 장엄했으며,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주님**은, 자신의 우주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손에 쥔 분으로서 우주의 통치자들과 의논했다. 그리고 이 열한 사도는, 전에 했던 대사 직분 서약에 모론시아적으로 재헌신(再獻身)하는 이 체험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님**은 자기 대사들과 함께 이 산에서 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한 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주님**이 이미 **아버지**께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들은 **벳새다**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만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했다. 이 한 주 내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있었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모론시아 전환 직무에 전념했다.

4. 호숫가에 모임

예수께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으며, **주님**의 부활에 관해 물어보려고,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매일 더 많은 신자가 **세베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 주 초반에, **베드로**는 공개 집회가 다음 **안식일** 오후 세 시에 그 바닷가에서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따라서, 4월 29일 토요일 세 시에, 부활 이후 **베드로**의 첫 대중 설교를 듣기 위해 500명 이상의 신자가 **가버나움** 근방에서 **벳새다**로 모였다. 그 사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의 매력적인

3. ON THE MOUNT OF ORDINATION

192:3.1 (2050.1) At noon on Saturday, April 22, the eleven apostles assembled by appointment on the hill near Capernaum, and Jesus appeared among them. This meeting occurred on the very mount where the Master had set them apart as his apostles and as ambassadors of the Father's kingdom on earth. And this was the Master's four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192:3.2 (2050.2) At this time the eleven apostles knelt in a circle about the Master and heard him repeat the charges and saw him re-enact the ordination scene even as when they were first set apart for the special work of the kingdom. And all of this was to them as a memory of their former consecration to the Father's service, except the Master's prayer. When the Master — the morontia Jesus — now prayed, it was in tones of majesty and with words of power such as the apostles had never before heard. Their Master now spoke with the rulers of the universes as one who, in his own universe, had had all power and authority committed to his hand. And these eleven men never forgot this experience of the morontia rededication to the former pledges of ambassadorship. The Master spent just one hour on this mount with his ambassadors, and when he had taken an affectionate farewell of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2:3.3 (2050.3) And no one saw Jesus for a full week. The apostles really had no idea what to do, not knowing whether the Master had gone to the Father. In this state of uncertainty they tarried at Bethsaida. They were afraid to go fishing lest he come to visit them and they miss seeing him. During this entire week Jesus was occupied with the morontia creatures on earth and with the affairs of the morontia transition which he was experiencing on this world.

4. THE LAKESIDE GATHERING

192:4.1 (2050.4) Word of the appearances of Jesus was spreading throughout Galilee, and every day increasing numbers of believers arrived at the Zebedee home to inquire about the Master's resurrection and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se reputed appearances. Peter, early in the week, sent out word that a public meeting would be held by the seaside the next Sabbath at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192:4.2 (2050.5) Accordingly, on Saturday, April 29, at three o'clock, more than five hundred believers from the environs of Capernaum assembled at Bethsaida to hear Peter preach his first public

강연이 다 끝난 후에는,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의심하는 청중은 거의 없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말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음을 단언하며;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를 봤고 그와 대화했음을 공포한다.” 그가 신념에 찬 이 선언을 마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의 옆에 모른시아 형제로 출현했으며, 낮익은 어투로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리고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열다섯 번째로 있었던 모른시아 현시였다.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열한 사도가 **주님**과 논의하는 동안 들었던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갈릴리**의 한 집단 앞에서 곧 공개적으로 출현하리라는 것과, 그가 그렇게 출현한 후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 날, 4월 30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열한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벧새다**를 떠났다. 그들은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전도했으므로, 5월 3일 수요일 늦은 시각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했다.

요한 마가에게는 슬픈 귀향길이였다.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버지 **엘리아 마가**가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슬픔을 많이 위로해 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훌륭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애도했다. **요한 마가**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로했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집에서 편히 머물도록 사도들을 청했다. 그리고 열한 사도는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 이 다락방을 본부로 사용했다.

유대인 권세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사도들은 일부러 해가 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또한 그들은, **엘리아 마가**를 장사 지내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파란 많은 이 다락방에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조용히 숨어서 지냈다.

사도들은 목요일 밤에 이 다락방에서 훌륭한 회의를 진행했고, **도마**, **열심당 시몬**, 그리고 **알패오**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도가 공공장소에 나가서 부활한 **주**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로 맹세했다. 천국 복음을--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되는 것과 사람들의 형제관계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포로 변경시키는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의 공개적 설교 요지에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나다니엘**이 반대했지만, **베드로**의 설득

sermon since the resurrection. The apostle was at his best, and after he had finished his appealing discourse, few of his hearers doubted that the Master had risen from the dead.

192:4.3 (2050.6) Peter ended his sermon, saying: “We affirm that Jesus of Nazareth is not dead; we declare that he has risen from the tomb; we proclaim that we have seen him and talked with him.”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is declaration of faith, there by his side, in full view of all these people, the Master appeared in morontia form and, speaking to them in familiar accents, said, “Peace be upon you,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When he had thus appeared and had so spoken to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This was the fif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the risen Jesus.

192:4.4 (2051.1) Because of certain things said to the eleven while they were in conference with the Master on the mount of ordination, the apostles received the impression that their Master would presently make a public appearance before a group of the Galilean believers, and that, after he had done so, they were to return to Jerusalem. Accordingly, early the next day, Sunday, April 30, the eleven left Bethsaida for Jerusalem. They did considerable teaching and preaching on the way down the Jordan, so that they did not arrive at the home of the Marks in Jerusalem until late on Wednesday, May 3.

192:4.5 (2051.2) This was a sad home-coming for John Mark. Just a few hours before he reached home, his father, Elijah Mark, suddenly died from a hemorrhage in the brain. Although the thought of the certainty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id much to comfort the apostles in their grief, at the same time they truly mourned the loss of their good friend, who had been their staunch supporter even in the times of great trouble and disappointment. John Mark did all he could to comfort his mother and, speaking for her, invited the apostles to continue to make their home at her house. And the eleven made this upper chamber their headquarters until after the day of Pentecost.

192:4.6 (2051.3) The apostles had purposely entered Jerusalem after nightfall that they might not be seen by the Jewish authorities. Neither did they publicly appear in connection with the funeral of Elijah Mark. All the next day they remained in quiet seclusion in this eventful upper chamber.

192:4.7 (2051.4) On Thursday night the apostles had a wonderful meeting in this upper chamber and all pledged themselves to go forth in the public preaching of the new gospel of the risen Lord except Thomas, Simon Zelotes, and the Alpheus twins. Already had begun the first steps of chang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 sonship with God and brotherhood with man — into the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특히 여신도들의 열광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원기 왕성한 지도력 아래,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그의 대변인들은 선의에서 한 것이기는 했지만,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새롭고 수정된 형태로 조금씩 확실하게 변경시키는, 교묘한 변천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Nathaniel opposed this shift in the burden of their public message, but he could not withstand Peter's eloquence, neither could he overcome the enthusiasm of the disciples, especially the women believers.

^{192:4.8 (2051.5)} And so, under the vigorous leadership of Peter and ere the Master ascended to the Father, his well-meaning representatives began that subtle process of gradually and certainly changing the religion of Jesus into a new and modified form of religion about Jesus.

제193편. 마지막 출현과 승천

⇨ 192

유랜시아 책

194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93편
마지막 출현과 승천

색션

소개

1. 사이카에 나타나심
2.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3.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출현
4. 유다가 실패한 이유
5. 주님의 승천
6.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함

PAPER 193
FINAL APPEARANCES AND
ASCENS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earance at Sychar
2. The Phoenician Appearance
3. Last Appearance in Jerusalem
4. Causes of Judas's Downfall
5. The Master's Ascension
6. Peter Calls a Meeting

소개

예수의 열여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는, 5월 5일 금요일, **니고데모**의 집 안마당에서 밤 아홉 시쯤에 이뤄졌다. 이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부활 사건 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려고 시도했다. 이때 모인 사람은, 열한 사도, 여자 단체와 그 동역자들, 그리고 다수의 **그리스인**을 포함해서 50여명에 이르는 **주님**의 다른 수제자들이었다. 이 신자 무리가 스스럼없이 30분 이상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모론시아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즉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내가 육신으로부터 떠난 이후로 계속 나타났던 신자들--곧 사도와 제자들,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 기간이 반드시 끝나게 되리라고 전에 말한 것과;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돼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또한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었다. 그

INTRODUCTION

193:0.1 (2052.1) THE six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occurred on Friday, May 5, in the courtyard of Nicodemus, about nine o'clock at night. On this evening the Jerusalem believers had made their first attempt to get together since the resurrection. Assembled here at this time were the eleven apostles, the women's corps and their associates, and about fifty other leading disciples of the Master, including a number of the Greeks. This company of believers had been visiting informally for more than half an hour when, suddenly, the morontia Master appeared in full view and immediately began to instruct them. Said Jesus:

193:0.2 (2052.2) “Peace be upon you. This is the most representative group of believers — apostles and disciples, both men and women — to which I have appeared since the time of my deliverance from the flesh. I now call you to witness that I told you beforehand that my sojourn among you must come to an end; I told you that presently I must return to the Father. And then I plainly told you how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Jews would deliver me up to be put to death, and that I would rise from the grave. Why, then, did you allow

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했느냐? 그리고 내가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 너희는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면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마음으로는 그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면서 정신으로만 내 가르침을 듣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머물게 된 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내가 온 유일한 목적임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생애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여의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심을 내가 드러냈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을 믿는 신앙으로, 이 사실은 너희 마음 속에서 영원하고 생생한 진리가 된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너희가 신성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너희는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영으로 태어나며,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해서 온갖 우주로 상승하고, **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달성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은, 천국 복음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진실과 사람이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의 전체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라. 너희가 전할 메시지는, 내가 부활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여전히 천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봉사를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상하게 하는 이 진리를,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깨달을 수 있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중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의 아들이라는 구원하는 진리를 몸소 신앙으로 붙잡기에 저희가 실패한다면, 그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국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봉사와 관련된다.

“너희끼리 여기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정보를 나누지만, 그 정보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와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를 가졌으며;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을 **낙원 아들**들에게 주신다. 내가 **요셉**의 새 무덤을 떠난 즉시, 한 시대의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상승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에 더 빨리 자극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너희에게 드러냈듯이, 너희도 사랑하는 봉사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육신 속에서 내 생애를 살았다. 너희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yourselves to become so disconcerted by all this when it came to pass? and why were you so surprised when I rose from the tomb on the third day? You failed to believe me because you heard my words without comprehending the meaning thereof.

193:0.3 (2052.3) “And now you should give ear to my words lest you again make the mistake of hearing my teaching with the mind while in your hearts you fail to comprehend the meaning. From the beginning of my sojourn as one of you, I taught you that my one purpose was to reveal my Father in heaven to his children on earth. I have lived the God-revealing bestowal that you might experience the God-knowing career. I have revealed God as your Father in heaven; I have revealed you as the sons of God on earth. It is a fact that God loves you, his sons. By faith in my word this fact becomes an eternal and living truth in your hearts. When, by living faith, you become divinely God-conscious, you are then born of the spirit as children of light and life, even the eternal life wherewith you shall ascend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ttain the experience of finding God the Father on Paradise.

193:0.4 (2052.4) “I admonish you ever to remember that your mission among men i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 the reality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truth of the sonship of man. Proclaim the whole truth of the good news, not just a part of the saving gospel. Your message is not changed by my resurrection experience. Sonship with God, by faith, is still the saving truth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are to go forth preaching the love of God and the service of man. That which the world needs most to know is: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rough faith they can actually realize, and daily experience, this ennobling truth. My bestowal should help all men to know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but such knowledge will not suffice if they fail personally to faith-grasp the saving truth that they are the living spirit sons of the eternal Father.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concerned with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service of his children on earth.

193:0.5 (2053.1) “Among yourselves, here, you share the knowledge that I have risen from the dead, but that is not strange. I have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to take it up again; the Father gives such power to his Paradise Sons. You should be rather stirred in your hearts by the knowledge that the dead of an age entered upon the eternal ascent soon after I left Joseph's new tomb. I lived my life in the flesh to show how you can, through loving service, become God-revealing to your fellow men even as, by loving you and serving you, I have become God-revealing to you. I have lived among you as the Son of Man that you, and all

든 사람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온 인류에게 하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동료 필사자를 섬겨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아버지**계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해라. 그가 너희를 확장된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온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이 신자들이 헤어진 것은 거의 날이 새 무렵이었으며; **주님**의 훈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면서 밤새 같이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모른시아 **주님**과 함께 가졌던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가 자신들에게 세 번 출현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 사이카에 나타나심

5월 13일 **안식일** 오후 네 시쯤에, **사이카**에 있는 **아굽**의 우물 근처에서, **주님**은 **날다**와 75명가량의 **사마리아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물에 관해 **날다**에게 말씀했던 곳 근처의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었다. 그들이 이날 부활의 소식에 대한 토의를 막 마쳤을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너희가 알고 기뻐했지만, 너희가 먼저 영원한 영으로 태어나고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앙의 자녀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모습 그대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때가 왔다. 너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다.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영 생애를 육신 속에서 살 때, 그 열매가 맺히는 체험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형제관계라는 관련된 진리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사람이 네 형제라면, 그는 이웃보다 더 가까우며, **아버지**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other men, might know that you are all indeed the sons of God. Therefore, go you now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to all men. Love all men as I have loved you; serve your fellow mortals as I have served you.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Only tarry here in Jerusalem while I go to the Father, and until I send you the Spirit of Truth. He shall lead you into the enlarged truth, and I will go with you into all the world. I am with you always,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193:0.6 (2053.2) When the Master had spoken to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It was near daybreak before these believers dispersed; all night they remained together, earnestly discussing the Master's admonitions and contemplating all that had befallen them. James Zebedee and others of the apostles also told them of their experiences with the morontia Master in Galilee and recited how he had three times appeared to them.

1. THE APPEARANCE AT SYCHAR

193:1.1 (2053.3) About four o'clock on Sabbath afternoon, May 13, the Master appeared to Nalda and about seventy-five Samaritan believers near Jacob's well, at Sychar. The believers were in the habit of meeting at this place, near where Jesus had spoken to Nalda concerning the water of life. On this day, just as they had finished their discussions of the reported resurrection, Jesus suddenly appeared before them, saying:

193:1.2 (2053.4) “Peace be upon you. You rejoice to know that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but this will avail you nothing unless you are first born of the eternal spirit, thereby coming to possess, by faith, the gift of eternal life. If you are the faith sons of my Father, you shall never die; you shall not perish. The gospel of the kingdom has taught you that all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is good news concerning the love of the heavenly Father for his children on earth must be carried to all the world. The time has come when you worship God neither on Gerizim nor at Jerusalem, but where you are, as you are, in spirit and in truth. It is your faith that saves your souls.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to all who believe they are his sons. But be not deceived; while salvation is the free gift of God and is bestowed upon all who accept it by faith, there follows the experience of bearing the fruits of this spirit life as it is lived in the flesh. The acceptance of the doctrine of the fatherhood of God implies that you also freely accept the associated truth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if man is your brother, he is even more than your neighbor, whom the Father requires you to love as yourself. Your brother, being of your own family,

고 요구하신다. 네 형제가 정말로 네 가족의 일원이라면, 너는 가족으로서 애정으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사랑과 섬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종족과 부족과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내 영이 너희보다 앞서 갈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의 이런 출현에 크게 놀랐으며, 가까운 도시와 마을들로 급히 나가서, 자신이 **예수**를 봤다는 소식과 그가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널리 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열일곱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2.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주님의 열여덟 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 아홉 시 조금 전에 **두로**에서 있었다. 그는 신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나서 말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과 너희의 형제들 역시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생존은, 너희가 이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탄생이 이뤄졌는지에 달려있다. 진리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곧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빵과 물이 주어진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천국 복음이 아니다. 이 엄청난 진리와 이 우주 사실이 모두 이 복음과 관련되지만,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의 일부일 뿐이며,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속하는 아들이 된 사람들이, 그 후에 갖게 되는 체험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들신분의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아들신분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동료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영의 열매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 신성한 영의 열매는: 사랑으로 섬김, 애타적 헌신, 불굴의 충성심, 진지한 공정성, 계몽된 정직성, 끊임없는 희망, 무조건적 신뢰, 자비로운 보살핌, 시종여일한 덕,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영구적 평강이다. 신자라고 고백한 자들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었으며;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으며;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고, 곧 잘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신앙의 자녀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구하신다. 따라서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뿌리 둘레를 파

you will not only love with a family affection, but you will also serve as you would serve yourself. And you will thus love and serve your brother because you, being my brethren, have been thus loved and served by me. Go, then, into all the world telling this good news to all creatures of every race, tribe, and nation. My spirit shall go before you, and I will be with you always.”

193:1.3 (2054.1) These Samaritans were greatly astonished at this appearance of the Master, and they hastened off to the near-by towns and villages, where they published abroad the news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hat he had talked to them. And this was the seventeenth morontia appearance of the Master.

2. THE PHOENICIAN APPEARANCE

193:2.1 (2054.2) The Master's eighteenth morontia appearance was at Tyre, on Tuesday, May 16, at a little before nine o'clock in the evening. Again he appeared at the close of a meeting of believers, as they were about to disperse, saying:

193:2.2 (2054.3) “Peace be upon you. You rejoice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because you thereby know that you and your brethren shall also survive mortal death. But such survival is dependent on your having been previously born of the spirit of truth-seeking and God-finding.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thereof are given only to those who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for God. The fact that the dead rise is not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se great truths and these universe facts are all related to this gospel in that they are a part of the result of believing the good news and are embraced in the subsequent experience of those who, by faith, become, in deed and in truth, the everlasting sons of the eternal God. My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to proclaim this salvation of sonship to all men. And so send I you abroad to preach this salvation of sonship. Salvation is the free gift of God, but those who are born of the spirit will immediately begin to show forth the fruits of the spirit in loving service to their fellow creatures. And th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which are yielded in the lives of spirit-born and God-knowing mortals are: loving service, unselfish devotion, courageous loyalty, sincere fairness, enlightened honesty, undying hope, confiding trust, merciful ministry, unfailing goodness, forgiving tolerance, and enduring peace. If professed believers bear not thes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in their lives, they are dead; the Spirit of Truth is not in them; they are useless branches on the living vine, and they soon will be taken away. My Father requires of the children of faith that they bear much spirit fruit. If, therefore, you are not fruitful, he will dig about your

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을 향해 진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온전한 크기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면서 널리 사방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며, 내 **진리의 영**이 너희 마음 속에 거할 것이다.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안디옥**과 **다마스쿠스**까지 나아갔다. **예수**께서는 육신 속에 있을 때 이 신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즉시 알아왔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 그의 친구들은 그의 모론티아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는, 그의 인격을 알아보기에 결코 더디지 않았다.

3.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출현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모론티아 인격체로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열한 사도가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앉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출현하여 말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 곧 부어지고, 저 높은 곳에서 능력과 함께 너희에게 수여될,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었다.” **열심당 시몬**이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주님**, 당신께서 천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시몬**의 질문을 다 들은 **예수**께서 말했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와 물질적 왕국에 대한 옛 개념에 몰두하는구나. 그러나 그 영이 네게 임한 후에 너는 영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곧 온 세상으로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기 바란다. **유다**는 사랑이 식었으므로, 그리고 충실한 형제인 너희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고 **성서**에 적어있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또,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을 친구처럼 보여야 한다’고 기록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 가르치게 했을 때에도, 너희가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의 해악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육신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우리가 교제하던 아주 초기부터, 나는 너희가

roots and cut away your unfruitful branches. Increasingly, must you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as you progress heavenward in the kingdom of God. You may enter the kingdom as a child, but the Father requires that you grow up, by grace, to the full stature of spiritual adulthood. And when you go abroad to tell all nations the good news of this gospel, I will go before you, and my Spirit of Truth shall abide in your hearts. My peace I leave with you.”

193:2.3 (2054.4) And then the Master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The next day there went out from Tyre those who carried this story to Sidon and even to Antioch and Damascus. Jesus had been with these believers when he was in the flesh, and they were quick to recognize him when he began to teach them. While his friends could not readily recognize his morontia form when made visible, they were never slow to identify his personality when he spoke to them.

3. LAST APPEARANCE IN JERUSALEM

193:3.1 (2055.1) Early Thursday morning, May 18, Jesus made his last appearance on earth as a morontia personality. As the eleven apostles were about to sit down to breakfast in the upper chamber of Mary Mark's home, Jesus appeared to them and said:

193:3.2 (2055.2) “Peace be upon you. I have asked you to tarry here in Jerusalem until I ascend to the Father, even until I send you the Spirit of Truth, who shall soon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who shall endow you with power from on high.” Simon Zelotes interrupted Jesus, asking, “Then, Master, will you restore the kingdom, and will we see the glory of God manifested on earth?” When Jesus had listened to Simon's question, he answered: “Simon, you still cling to your old ideas about the Jewish Messiah and the material kingdom. But you will receive spiritual power after the spirit has descended upon you, and you will presently go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do I send you. And I wish that you would love and trust one another. Judas is no more with you because his love grew cold, and because he refused to trust you, his loyal brethren.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where it is written: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No man lives to himself?’ And also where it says: ‘He who would have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And did I not even send you out to teach, two and two, that you might not become lonely and fall into the mischief and miseries of isolation? You also well know that, when I was in the flesh, I did not permit myself to be alone for long periods.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associations I always had two or three of you constantly by my side or

운데 두 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도록 했고, 내가 **아버지**와 교류할 때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신임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됐으니,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때가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다.”

말씀을 마치자, 그는 따라오라고 손짓으로 불렀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으며,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감람원**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엄숙했다. 그들은 다락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잠시 멈출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4. 유다가 실패한 이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유다**를 잃은 것에 대해 서두에 언급했고, 사회적 고립과 형제간 고립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들의 불충한 동료 일꾼의 비극적 운명을 거론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지나간 수세기 동안 계속 발전해 온 깨우침의 견지에서, **유다**가 실패한 원인을 간단히 돌이켜보는 것은, 현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의 신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먼저 **유다**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데, 두드러지게 고립된 인간성, 즉 통상적 사회 접촉에서 멀어지고 문을 닫아버린 인간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 사도들을 신뢰하는 것과, 자유롭게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강화하고 영적 은혜의 성장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고립된 인간성 유형에 속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유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는 악한 감정에 고집스럽게 집착했고, 앙갚음이라는 심리적인 적,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실망감에 대해 누군가에게 “받은 대로 갚기”를 막연히 갈망하는 심리적인 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불운하게도 이렇게 조합된 개별 습성과 정신적 경향이, 사랑, 신앙, 및 신뢰로 이런 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선의를 지닌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다**가 반드시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도마**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잘 증명되며, 이 두 사람도 이와 동일한 종류의 의심과 개인주의 경향으로 비뚤어진 상태였다. 심지어 **안드레**와 **마태**에게도 이런 추세의 성향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됐고, 줄어든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은혜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더 깊어졌다. 그들은 형제들을 점점 더 신뢰했고, 동료들을 신임할 수 있는 역량을 서서히 개발{啓發}했다. **유다**는 형제들을 신뢰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갈등이 쌓여서, 자아를 표현할 분출구를 찾을 수

else very near at hand even when I communed with the Father. Trust, therefore, and confide in one another. And this is all the more needful since I am this day going to leave you alone in the world. The hour has come; I am about to go to the Father.”

193:3.3 (2055.3) When he had spoken, he beckoned for them to come with him, and he led them out on the Mount of Olives, where he bade them farewell preparatory to departing from Urantia. This was a solemn journey to Olivet. Not a word was spoken by any of them from the time they left the upper chamber until Jesus paused with them on the Mount of Olives.

4. CAUSES OF JUDAS'S DOWNFALL

193:4.1 (2055.4) It was in the first part of the Master's farewell message to his apostles that he alluded to the loss of Judas and held up the tragic fate of their traitorous fellow worker as a solemn warning against the dangers of social and fraternal isolation. It may be helpful to believers, in this and in future ages, briefly to review the causes of Judas's downfall in the light of the Master's remarks and in view of the accumulated enlightenment of succeeding centuries.

193:4.2 (2055.5) As we look back upon this tragedy, we conceive that Judas went wrong, primarily, because he was very markedly an isolated personality, a personality shut in and away from ordinary social contacts. He persistently refused to confide in, or freely fraternize with, his fellow apostles. But his being an isolated type of personality would not, in and of itself, have wrought such mischief for Judas had it not been that he also failed to increase in love and grow in spiritual grace. And then, as if to make a bad matter worse, he persistently harbored grudges and fostered such psychologic enemies as revenge and the generalized craving to “get even” with somebody for all his disappointments.

193:4.3 (2056.1) This unfortunate combination of individual peculiarities and mental tendencies conspired to destroy a well-intentioned man who failed to subdue these evils by love, faith, and trust. That Judas need not have gone wrong is well proved by the cases of Thomas and Nathaniel, both of whom were cursed with this same sort of suspicion and overdevelopment of the individualistic tendency. Even Andrew and Matthew had many leanings in this direction; but all these men grew to love Jesus and their fellow apostles more, and not less, as time passed. They grew in grace and in a knowledge of the truth. They became increasingly more trustful of their brethren and slowly developed the ability to confide in their fellows. Judas persistently refused

밖에 없을 때마다, 영적이지 못한 친척,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어리석은 위로 받았는데, 그들은 하늘 나라의 영적 실체의 복지와 진보에 무관심하거나 실제로 반대하는 자들이었으며, 그 면에서는 **유다**가 이 땅에서 성별(聖別)된 하늘 나라의 열두 대사 가운데 하나였다.

유다는 이 세상의 갈등과 투쟁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향과 성품의 약점들 때문에 패배했다:

1. 그는 고립된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는 매우 개인주의적이었고, 만성적 “자폐성(自閉性)”을 점점 더 키워가는 쪽으로 선택했다.

2. 소년 시절에 그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았다. 방해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항상 승리를 기대했고;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3. 그는 실망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 기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실망감을 인간 실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색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모든 개인적 곤경과 실망에 대해, 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동역자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을 어김없이 따랐다.

4. 그는 항상 불평을 품는 경향이 있었으며; 복수심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했다.

5. 그는 사실에 솔직하게 대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인생의 상황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

6. 그는 자신의 개인 문제에 대해 가까운 동역자들과 의논하기를 싫어했으며; 진실한 친구,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들과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그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님께** 상의하지 않았다.

7. 고상한 삶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결국 영적 상급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상급은 이런 육신 속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항상 공급되지는 않는다.

그의 인간성의 고립이 지속된 결과로, 그의 비탄은 배가(倍加)됐고, 슬픔은 깊어졌으며, 근심은 증대됐고, 절망감은 심화되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거의 초과했다.

자기중심적이고 심히 개인주의적인 이 사도가, 심령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졌지만, 그에게 주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인격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정신적으로 의심이 많고 복수심이 가득했다. 체질적으로 무뚝뚝하고 악의가 있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완전히 가까울 정도로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to confide in his brethren. When he was impelled, by the accumulation of his emotional conflicts, to seek relief in self-expression, he invariably sought the advice and received the unwise consolation of his unspiritual relatives or those chance acquaintances who were either indifferent, or actually hostile, to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heavenly kingdom, of which he was one of the twelve consecrated ambassadors on earth.

193:4.4 (2056.2) Judas met defeat in his battles of the earth struggle because of the following factors of personal tendencies and character weakness:

193:4.5 (2056.3) 1. He was an isolated type of human being. He was highly individualistic and chose to grow into a confirmed “shut-in” and unsociable sort of person.

193:4.6 (2056.4) 2. As a child, life had been made too easy for him. He bitterly resented thwarting. He always expected to win; he was a very poor loser.

193:4.7 (2056.5) 3. He never acquired a philosophic technique for meeting disappointment. Instead of accepting disappointments as a regular and commonplace feature of human existence, he unfailingly resorted to the practice of blaming someone in particular, or his associates as a group, for all his personal difficulties and disappointments.

193:4.8 (2056.6) 4. He was given to holding grudges; he was always entertaining the idea of revenge.

193:4.9 (2056.7) 5. He did not like to face facts frankly; he was dishonest in his attitude toward life situations.

193:4.10 (2056.8) 6. He disliked to discuss his personal problems with his immediate associates; he refused to talk over his difficulties with his real friends and those who truly loved him. In all the years of their association he never once went to the Master with a purely personal problem.

193:4.11 (2056.9) 7. He never learned that the real rewards for noble living are, after all, spiritual prizes, which are not always distributed during this one short life in the flesh.

193:4.12 (2056.10) As a result of his persistent isolation of personality, his griefs multiplied, his sorrows increased, his anxieties augmented, and his despair deepened almost beyond endurance.

193:4.13 (2057.1) While this self-centered and ultraindividualistic apostle had many psychic, emotional, and spiritual troubles, his main difficulties were: In personality, he was isolated. In mind, he was suspicious and vengeful. In temperament, he was surly and vindictive. Emotionally, he was loveless and unforgiving. Socially, he was unconfiding and almost wholly

영적으로 거만하고 이기적으로 야심적인 사람이 돼갔다. 사는 동안에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죽을 때에는 고독했다.

선의를 가졌었고 한때는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인간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긴밀한 교제를 수년 동안 나눈 후에도, 어떻게 해서 동료들을 저버리고, 신성시되는 목적을 무시하고,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반하게 됐는지를, 함께 어우러진 이런 정신적 요소와 악의 영향이 설명해 준다.

5. 주님의 승천

말이 없고 어느 정도 어리둥절 하는 열한 명의 사도와 함께, **예수**께서 **감람산** 서쪽 기슭에 도착한 것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곱 시 반쯤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3분의 2정도 되는 이 위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겔세마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준비했다. **주님**이 그들 앞에 서자, 아무 지시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고, **주님**이 말씀했다:

“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너희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려 하며;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곧,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며; 그가 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천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동료 필사자를 섬겨라. 너희 삶에 맺히는 영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 **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 형제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살았던 생애를 기억해라. 내 사랑이 너희를 지배하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내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잘 있거라.”

이 말씀을 마치자, 모른시아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소위 **예수**의 승천(昇天)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주님**이 **유란시아**에서 40일 동안의 모른시아 생애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던 다른 경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주님은 **예루셈**을 거쳐 **에덴시아**로 갔으며, 거기서 **낙원 아들**의 감독 아래, **지고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른시아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고, 상승하는 영 경로를 통해서, **낙원**의 아들신분 상태로, 그리고 **살빙톤**의 최고 주권자 상태로 돌아가게 했다.

네바돈 우주에 대한 그의 완전한 주권을 공식

self-contained. In spirit, he became arrogant and selfishly ambitious. In life, he ignored those who loved him, and in death, he was friendless.

193:4.14 (2057.2) These, then, are the factors of mind and influences of evil which, taken altogether, explain why a well-meaning and otherwise onetime sincere believer in Jesus, even after several years of intimate association with his transforming personality, forsook his fellows, repudiated a sacred cause, renounced his holy calling, and betrayed his divine Master.

5. THE MASTER'S ASCENSION

193:5.1 (2057.3) It was almost half past seven o'clock this Thursday morning, May 18, when Jesus arrived on the western slope of Mount Olivet with his eleven silent and somewhat bewildered apostles. From this location, about two thirds the way up the mountain, they could look out over Jerusalem and down upon Gethsemane. Jesus now prepared to say his last farewell to the apostles before he took leave of Urantia. As he stood there before them, without being directed they knelt about him in a circle, and the Master said:

193:5.2 (2057.4) “I bade you tarry in Jerusalem until you were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I am now about to take leave of you; I am about to ascend to my Father, and soon, very soon, will we send into this world of my sojourn the Spirit of Truth; and when he has come, you shall begin the new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first in Jerusalem and then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Love men with the love wherewith I have loved you and serve your fellow mortals even as I have served you. By the spirit fruits of your lives impel souls to believe the truth that man is a son of God, and that all men are brethren. Remember all I have taught you and the life I have lived among you. My love overshadows you, my spirit will dwell with you, and my peace shall abide upon you. Farewell.”

193:5.3 (2057.5) When the morontia Master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This so-called ascension of Jesus was in no way different from his other disappearances from mortal vision during the forty days of his morontia career on Urantia.

193:5.4 (2057.6) The Master went to Edentia by way of Jerusem, where the Most Highs,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Paradise Son, released Jesus of Nazareth from the morontia state and, through the spirit channels of ascension, returned him to the status of Paradise sonship and supreme sovereignty on Salvington.

193:5.5 (2057.7) It was about seven forty-five this morning when the morontia Jesus disappeared

적으로 확정 받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려고, 모른시아 **예수**께서 열한 명의 사도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이날 아침 일곱 시 45분쯤이었다.

6.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함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요한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모이도록 수제자들을 부르러 나섰다. 열 시 반이 됐을 때, 120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의 수제자들이, **주님**의 작별 설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승천에 대해 알기 위하여 모였다. 이 무리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사도들이 최근에 **갈릴리**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도 **요한 세베대**와 함께 왔다. 어머니는 **오순절** 직후에 **벧새다**에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이 모임, 즉 **주님**이 이 행성에서 생애를 마친 후 소집된 제자들의 첫 회담에 참석했다.

시몬 베드로가 차장해서 동료 사도들을 대표하여 말했으며, 열한 사도와 **주님**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고, **주님**의 마지막 인사와, 승천하여 사라지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하기까지, 이 모임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그때,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그들이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자리를 위해 천거된 두 사람, 즉 **맛디아**와 **유스도**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休會}가 선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에 열한 사도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될 사람을 두 사람 중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동의했다. 제비는 **맛디아** 쪽으로 뽑혔으며, 새로운 사도로 임명됐다. 직책을 정식으로 받게 됐고 회계원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맛디아**는 그 후에 사도들의 활동에서 거의 역할이 없었다.

오순절 직후에, 쌍둥이 형제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열심당 시몬**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한동안 쉬었다. **도마**는 비교적 짧은 기간 고민한 후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다니엘**은, 초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예수**에 관해 전도하는 **베드로**와 점점 더 의견을 달리했다. 이런 의견 차이가 그다음 달 중순쯤에 너무 심화{深化}되어, **나다니엘**이 물러났고, **아브넬**과 **나사르**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갔으며; 거기서 일 년 이상 머문 후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 땅으로 갔다.

from the observation of his eleven apostles to begin the ascent to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there to receive formal confirmation of his completed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6. PETER CALLS A MEETING

193:6.1 (2057.8) Acting upon the instruction of Peter, John Mark and others went forth to call the leading disciples together at the home of Mary Mark. By ten thirty, one hundred and twenty of the foremost disciples of Jesus living in Jerusalem had forgathered to hear the report of the farewell message of the Master and to learn of his ascension. Among this company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She had returned to Jerusalem with John Zebedee when the apostles came back from their recent sojourn in Galilee. Soon after Pentecost she returned to the home of Salome at Bethsaida. James the brother of Jesus was also present at this meeting, the first conference of the Master's disciples to be called after the termination of his planetary career.

193:6.2 (2058.1) Simon Peter took it upon himself to speak for his fellow apostles and made a thrilling report of the last meeting of the eleven with their Master and most touchingly portrayed the Master's final farewell and his ascension disappearance. It was a meeting the like of which had never before occurred on this world. This part of the meeting lasted not quite one hour. Peter then explained that they had decided to choose a successor to Judas Iscariot, and that a recess would be granted to enable the apostles to decide between the two men who had been suggested for this position, Matthias and Justus.

193:6.3 (2058.2) The eleven apostles then went downstairs, where they agreed to cast lots in order to determine which of these men should become an apostle to serve in Judas's place. The lot fell on Matthias, and he was declared to be the new apostle. He was duly inducted into his office and then appointed treasurer. But Matthias had little part in the subsequent activities of the apostles.

193:6.4 (2058.3) Soon after Pentecost the twins returned to their homes in Galilee. Simon Zelotes was in retirement for some time before he went forth preaching the gospel. Thomas worried for a shorter period and then resumed his teaching. Nathaniel differed increasingly with Peter regarding preaching about Jesus in the place of proclaiming the former gospel of the kingdom. This disagreement became so acute by the middle of the following month that Nathaniel withdrew, going to Philadelphia to visit Abner and Lazarus; and after tarrying there for more than a year, he went on into the lands beyond Mesopotamia preaching the gospel as he

원래의 열두 사도 중에서 남은 6명,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및 **마태**가, **예루살렘**의 이 초기 복음 선포 무대에서 배우가 됐다.

정오 무렵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왔고, **맛디아**가 새 사도로 선출됐음을 공포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신자에게 기도에 동참하도록 소집했는데, **주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영의 선물을 받으려고 준비하기 위한 기도였다.

understood it.

193:6.5 (2058.4) This left but six of the original twelve apostles to become actors on the stage of the early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Jerusalem: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and Matthew.

193:6.6 (2058.5) Just about noon the apostles returned to their brethren in the upper chamber and announced that Matthias had been chosen as the new apostle. And then Peter called all of the believers to engage in prayer, prayer that they might be prepared to receive the gift of the spirit which the Master had promised to send.

제194편. 진리의 영이 증여됨

⇨ 193

유랜시아 책

195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94편
진리의 영이 증여됨

섹션

소개

1. 오순절 설교
2. 오순절의 의미
3. 오순절에 일어난 일
4. 그리스도교 교회의 시작

PAPER 194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entecost Sermon
2.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3. What Happened at Pentecost
4. Beginnings of the Christian Church

소개

한 시 쯤에, 120명의 신자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방 안에서 어떤 이상한 존재를 의식하게 됐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 모두, 영적 기쁨, 안도감, 그리고 확신을 주는 새롭고 심오한 느낌을 의식하게 됐다. 이렇게 영적 힘을 새롭게 의식하게 된 후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과 천국 복음을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려는, 강한 충동이 즉시 뒤따랐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진리의 영**이 도래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위임된 기쁜 소식을, 성전으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사람은 아들신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전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었지만, 영적 흥분과 개인적 승리감을 느낀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 가장 엄청난 소식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위에서 주어진 능력을 부여받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곧 **예수**를 통한 공평한 구원--을 전도하면서 나아갔지만,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복음

INTRODUCTION

194:0.1 (2059.1) ABOUT one o'clock, as the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were engaged in prayer, they all became aware of a strange presence in the room. At the same time these disciples all became conscious of a new and profound sense of spiritual joy, security, and confidence. This new consciousness of spiritual strength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strong urge to go out and publicly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 good news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194:0.2 (2059.2) Peter stood up and declared that this must be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 Master had promised them and proposed that they go to the temple and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news committed to their hands. And they did just what Peter suggested.

194:0.3 (2059.3) These men had been trained and instructed that the gospel which they should preach was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of man, but at just this moment of spiritual ecstasy and personal triumph, the best tidings, the greatest news, these men could think of was the *fact* of the risen Master. And so they went forth,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preaching glad tidings to the people — even salvation through Jesus — but

과 관련된 어떤 사실로 대치시키는 잘못을, 무심코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실수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앞장섰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고, 기쁜 소식의 개정판으로부터 새 종교를 창시한 **바울**에게 이어졌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결과로 사람이 아들신분이요 형제관계라는 진리다. 그날 이후로 생겨난 **그리스도교**는: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신자로서 친교하는 체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영이 주입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고 그의 교훈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는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포착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시기에, **예수**와 함께 가졌던 개인적 관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과의 친구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약속대로 그 영이 정말로 도래했다는 확신으로 감동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다.

이 신자들은, 다른 세계, 즉 기쁨, 능력, 및 영광의 새로운 생활로 자신들이 갑자기 전환됐음을 느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능력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었으며,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분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고려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초기 메시지 내용 대신, **예수**에 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1. 오순절 설교

사도들은 지난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고,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축제를 위해 도착한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유월절** 이후에도 계속 성에 머물고 있었다. 두려워하던 사도들은, 이제 숨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성전에 나타났고, 부활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어떤 새로운 영적 재능을 받았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의식했다.

주님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열정적으로 호소하여, 2천 명 이상의 혼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은 두 시쯤이었다. **주님**은 떠났지만, 그들은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they unintentionally stumbled into the error of substituting some of the facts associated with the gospel for the gospel message itself. Peter unwittingly led off in this mistake, and others followed after him on down to Paul, who created a new religion out of the new version of the good news.

194:0.4 (2059.4)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the fact of the fatherhood of God, coupled with the resultant truth of the sonship-brotherhood of men. Christianity, as it developed from that day, is: the fact of God as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in association with the experience of believer-fellowship with the risen and glorified Christ.

194:0.5 (2059.5) It is not strange that these spirit-infused men should have seized upon this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of triumph over the forces which had sought to destroy their Master and end the influence of his teachings. At such a time as this it was easier to remember their personal association with Jesus and to be thrilled with the assurance that the Master still lived, that their friendship had not ended, and that the spirit had indeed come upon them even as he had promised.

194:0.6 (2059.6) These believers felt themselves suddenly translated into another world, a new existence of joy, power, and glory. The Master had told them the kingdom would come with power, and some of them thought they were beginning to discern what he meant.

194:0.7 (2059.7) And when all of thi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se men came to preach a *new gospel about Jesus* in the place of their former message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1. THE PENTECOST SERMON

194:1.1 (2060.1) The apostles had been in hiding for forty days. This day happened to be the Jewish festival of Pentecost, and thousands of visitor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were in Jerusalem. Many arrived for this feast, but a majority had tarried in the city since the Passover. Now these frightened apostles emerged from their weeks of seclusion to appear boldly in the temple, where they began to preach the new message of a risen Messiah. And all the disciples were likewise conscious of having received some new spiritual endowment of insight and power.

194:1.2 (2060.2) It was about two o'clock when Peter stood up in that very place where his Master had last taught in this temple, and delivered that impassioned appeal which resulted in the winning of more than two thousand souls. The Master had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했다. 그들이 전에 **예수**께 헌신했던 것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를 더욱 선포하도록, 계속 마음이 끌린 것은 당연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여섯 사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및 마태**였다. 그들은 한 시간 반 이상 이야기했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한 그들이 쉽게 말할 수 있었던 다른 방언들로도 몇 마디씩 설교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대담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많은 사람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다.

네 시 반쯤에, 2천 명 이상의 새 신자가 사도들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및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야 이 대중에게 세례 주기를 마칠 수 있었다.

오순절은 세례 받는 큰 축제였는데, 대문 밖의 개종자들, 즉 **아훼**를 섬기기 원하는 이방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많은 무리가 이날 세례에 참여하기는 훨씬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유대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한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남아 있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 **유대인**의 예식 체계의 기본 요건에 여전히 충실했다.

2. 오순절의 의미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마귀의 자손이라는 미신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신앙 아들임을 믿는 존엄성에 이르도록 높여주는 복음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전파하고 또 그대로 삶에서 실천한 그 메시지는, 그것을 전한 그 시대에 사람이 갖는 영적 고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때 그가 몸으로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대신하는,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냈는데, 이 **진리의 영**은 사람 속에 살도록, 그리고 새 세대들마다 **예수**의 메시지를 다시 진술하도록 고안했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새 집단의 각 필사자마다 새로운 최신 복음 개정판을 갖게 될 것이요, 바로 그런 개인적 깨우침과 집단적 지침이, 사람의 늘 새롭고 다채로운 영적 고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이 영의 첫째 사명은, 당연히 진리를 촉진시키고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진리를 납득하는 것이 최고 형태의 인간 자유를 성립시키기

gone, but they suddenly discovered that this story about him had great power with the people. No wonder they were led on into the further proclamation of that which vindicated their former devotion to Jesus and at the same time so constrained men to believe in him. Six of the apostles participated in this meeting: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and Matthew. They talked for more than an hour and a half and delivered messages in Greek, Hebrew, and Aramaic, as well as a few words in even other tongues with which they had a speaking acquaintance.

194:1.3 (2060.3) The leaders of the Jews were astounded at the boldness of the apostles, but they feared to molest them because of the large numbers who believed their story.

194:1.4 (2060.4) By half past four o'clock more than two thousand new believers followed the apostles down to the pool of Siloam, wher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baptized them in the Master's name. And it was dark when they had finished with baptizing this multitude.

194:1.5 (2060.5) Pentecost was the great festival of baptism, the time for fellowshiping the proselytes of the gate, those gentiles who desired to serve Yahweh. It was, therefore, the more easy for large numbers of both the Jews and believing gentiles to submit to baptism on this day. In doing this, they were in no way disconnecting themselves from the Jewish faith. Even for some time after this the believers in Jesus were a sect within Judaism. All of them, including the apostles, were still loyal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Jewish ceremonial system.

2.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194:2.1 (2060.6) Jesus lived on earth and taught a gospel which redeemed man from the superstition that he was a child of the devil and elevated him to the dignity of a faith son of God. Jesus' message, as he preached it and lived it in his day, was an effective solvent for man's spiritual difficulties in that day of its statement. And now that he has personally left the world, he sends in his place his Spirit of Truth, who is designed to live in man and, for each new generation, to restate the Jesus message so that every new group of mortals to appear upon the face of the earth shall have a new and up-to-date version of the gospel, just such personal enlightenment and group guidance as will prove to be an effective solvent for man's ever-new and varied spiritual difficulties.

194:2.2 (2060.7) The first mission of this spirit is, of course, to foster and personalize truth, for it is the comprehension of truth that constitutes the highest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영의 목적은 신자들이 자신을 고아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내주하기 위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고독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증여된 **아들**의 영은, 그다음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영(곧 **조을사**)의 보편적 증여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도록,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 두 분의 영이다.

쏟아 부어진 **진리의 영**을 지적으로 강하게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 영은 결코 자신을 의식(意識)하게 만들지 않고, 오직 **미가엘**, 즉 **아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그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의 영**과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너희가 이 영을 의식함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미가엘**과 더 향상된 교제를 나누는 체험에서 발견된다.

또한 이 영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내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세상 생애를 조명하고 재해석하기 위해서 왔다.

다음으로, **진리의 영**은, **예수**가 육신 속에서 살았던 대로, 그리고 지나가는 각 세대마다 그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 개인 속에서 그가 지금 다시 한 번 새롭게 사는 것 같이, **예수**의 교훈과 그의 생애라는 실체들에 대해 증인이 되도록, 신자를 돕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정말로 모든 신자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려고,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상승하는 아들신분의 실체를 생생하게 점점 더 영적으로 의식하는 체험을 더 폭넓게 알도록 이끌려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아버지** 뜻을 곧이곧대로 따르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예(例)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았다. 육신 속에서 산 이런 생애는 이내 새로운 속죄의 복음이 됐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난 부활과 함께,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곧 화나신 **하나님**의 유죄판결로부터--사람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비록 복음이 크게 왜곡됐어도, **예수**에 관한 이런 새로운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그의 초기 복음 중에서 근본적인 많은 진리를 전수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감춰진 진리는, 모든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변모(變貌)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이런 실수는, 신자의 영적 성장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진리의 영**이 증여된 지 한 달도 못되어, 사도들

form of human liberty. Next, it is the purpose of this spirit to destroy the believer's feeling of orphanhood. Jesus having been among men, all believers would experience a sense of loneliness had not the Spirit of Truth come to dwell in men's hearts.

194:2.3 (2061.1) This bestowal of the Son's spirit effectively prepared all normal men's minds for the subsequent universal bestowal of the Father's spirit (the Adjuster) upon all mankind. In a certain sense, this Spirit of Truth is the spirit of both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reator Son.

194:2.4 (2061.2) Do not make the mistake of expecting to become strongly intellectually conscious of the outpoured Spirit of Truth. The spirit never creates a consciousness of himself, only a consciousness of Michael, the Son. From the beginning Jesus taught that the spirit would not speak of himself. The proof, therefore, of your fellowship with the Spirit of Truth is not to be found in your consciousness of this spirit but rather in your experience of enhanced fellowship with Michael.

194:2.5 (2061.3) The spirit also came to help men recall and understand the words of the Master as well as to illuminate and reinterpret his life on earth.

194:2.6 (2061.4) Next, the Spirit of Truth came to help the believer to witness to the realities of Jesus' teachings and his life as he lived it in the flesh, and as he now again lives it anew and afresh in the individual believer of each passing generation of the spirit-filled sons of God.

194:2.7 (2061.5) Thus it appears that the Spirit of Truth comes really to lead all believers into all truth, into the expanding knowledge of the experience of the living and growing spiritual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of eternal and ascending sonship with God.

194:2.8 (2061.6) Jesus lived a life which is a revelation of man submitted to the Father's will, not an example for any man literally to attempt to follow. This life in the flesh, together with his death on the cross and subsequent resurrection, presently became a new gospel of the ransom which had thus been paid in order to purchase man back from the clutch of the evil one — from the condemnation of an offended God. Nevertheless, even though the gospel did become greatly distorted, it remains a fact that this new message about Jesus carried along with it many of the fundamental truths and teachings of his earlier gospel of the kingdom. And, sooner or later, these concealed truth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will emerge to effectually transform the civilization of all mankind.

194:2.9 (2061.7) But these mistakes of the intellect in no way interfered with the believer's great progress in growth in spirit. In less than a month

은 거의 4년에 걸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교제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많은 영적 진보를 개인마다 이뤘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대치시킨 것도, 그들의 교훈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했으며; 도리어, 그의 인품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교훈으로 인해 **예수**의 메시지에 드리워진 이 그들이, 기쁜 소식의 전파를 크게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영의 세례{洗禮}”라는 용어가 당시에 널리 쓰이게 됐는데, 단순히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의식했음을, 그리고 이런 새로운 영적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혼들이 전에 체험했던 모든 영적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했음을 의미했을 뿐이다.

진리의 영이 증여된 후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삼중적 영 재능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됐다: **아버지의 영**, 즉 **사도 조울사**; **아들의 영**, 즉 **진리의 영**; **영의 영**, 즉 **거룩한 영**.

어떤 면에서, 인류는 칠중{七重} 매력의 우주 영 영향력 중에서 이중{二重} 영향력에 종속된다. 초기 진화 과정에 있던 필사자 인종들은,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의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점진적 접촉에 지배를 받는다. 지성과 영적 감지의 정도에서 사람이 위쪽으로 진보되면, 결국 더 높은 일곱 영{靈} 영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진보하는 세계들의 이 일곱 영은 다음과 같다:

1.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하신 영{靈}--사도 조울사**.

2.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온갖 우주의 영 인력{引力}, 및 모든 영 친교의 특정한 경로.

3. **무한한 영의 영** 현존--모든 창조물의 보편적 영_정신, 즉 진보하는 모든 지성체의 지적 유사성의 영적 근원.

4.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아들의 영**으로 간주되는, **진리의 영**.

5. **무한한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영의 영**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영**.

6. **우주 어머니 영의 정신_영**--지방우주의 일곱 보조 정신_영.

after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the apostles made more individual spiritual progress than during their almost four years of personal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Master. Neither did this substitution of the *fac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for the saving gospel *truth* of sonship with God in any way interfere with the rapid spread of their teachings; on the contrary, this overshadowing of Jesus' message by the new teachings about his person and resurrection seemed greatly to facilitate the preaching of the good news.

194:2.10 (2061.8) The term “baptism of the spirit,” which came into such general use about this time, merely signified the conscious reception of this gift of the Spirit of Truth and the personal acknowledgment of this new spiritual power as an augmentation of all spiritual influences previously experienced by God-knowing souls.

194:2.11 (2061.9) Since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man is subject to the teaching and guidance of a threefold spirit endowment: the spirit of the Father, the Thought Adjuster; the spirit of the Son,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the Spirit, the Holy Spirit.

194:2.12 (2062.1) In a way, mankind is subject to the double influence of the sevenfold appeal of the universe spirit influences.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f mortals are subject to the progressive contact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s man progresses upward in the scale of intelligence and spiritual perception, there eventually come to hover over him and dwell within him the seven higher spirit influences. And these seven spirits of the advancing worlds are:

194:2.13 (2062.2) 1. The bestowed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 the Thought Adjusters.

194:2.14 (2062.3) 2.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 the spirit gravit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e certain channel of all spirit communion.

194:2.15 (2062.4) 3. The spirit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 the universal spirit-mind of all creation, the spiritual source of the intellectual kinship of all progressive intelligences.

194:2.16 (2062.5) 4.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reator Son — the Spirit of Truth, generally regarded as the spirit of the Universe Son.

194:2.17 (2062.6) 5. The spirit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 the Holy Spirit, generally regarded as the spirit of the Universe Spirit.

194:2.18 (2062.7) 6. The mind-spirit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7. **아버지**와 **아들**들과 **영**들의 영--영으로_태어난 필사자의 혼이 **낙원 사고 조율사**와 결합한 후에, 그리고 나중에 **낙원 완결 성취 단체**에서 신성{神性}과 영화로운 신분을 달성한 후에, 그 영역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갖는 새로운_이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 그렇게 증여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서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계획된 마지막 영 재능을 그 세계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왔다.

3. 오순절에 일어난 일

기묘하고 이상한 많은 교훈이, **오순절** 날에 대한 초기 전승들과 결합했다. **진리의 영**, 즉 새 선생이 인류에게 내주하기 위해 임한 이날의 사건 이후로 계속, 어리석게도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감정주의와 혼동돼 왔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쏟아부어진 이 영의 주된 사명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라는 진리에 관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모든 신성한 성품 특징보다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성{神性}에 대한 진리다. **진리의 영**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영 본성과 **아들**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는 데 관여한다. **창조주 아들**은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냈으며, **진리의 영**은 마음 속에서 **창조주 아들**을 사람에게 드러낸다. 인생에서 “영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은 다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애 속에 형태화했던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곧 **나사렛 예수**로서-- 일생을 살았다. **주님**은, **오순절** 후에, “새 선생”이라는 내주하는 영으로서, 진리의_가르침을 받는 각 신자의 체험 속에서 생애를 새로이 살 수 있다.

인간 생애의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우주에서 진리가 지배하고 의가 승리한다는 관념과 조화시키기 어렵다. 중상과 거짓말 그리고 부정직과 불의가--곧 죄가-- 승리하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신앙이 결국에는, 악, 죄, 및 죄악을 이기게 될까? 물론이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죽음은, 선한 진리와 영으로_인도함을 받는 피조물의 신앙이 항상 정당화 되리라는 영원한 증거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께,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구출하시는지 보자”고 말하며 조롱했다. 십자가형이 있던 날에는 암울하게 보였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찬란하게 빛났으며; **오순절** 날에는 더욱 밝았고 기쁨이 넘쳤다. 염세적인 절망의 종교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며; 끝없는 수면과 휴식 속에서 사멸해가기를 갈망한다. 그런 것은 원시적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다. **예수**의 종교는, 허덕이고 있는 인류에게 선포돼야 할 신앙의 새 복음이다. 이 새 종교는, 신앙, 희망, 및 사랑에 바탕을 둔다.

194:2.19 (2062.8) 7. The spirit of the Father, Sons, and Spirits — the new-name spirit of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realms after the fusion of the mortal spirit-born soul with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 and after the subsequent attainment of the divinity and glorification of the status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94:2.20 (2062.9) And so did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bring to the world and its peoples the last of the spirit endowment designed to aid in the ascending search for God.

3. WHAT HAPPENED AT PENTECOST

194:3.1 (2062.10) Many queer and strange teachings became associated with the early narratives of the day of Pentecost. In subsequent times the events of this day, on which the Spirit of Truth, the new teacher, came to dwell with mankind, have become confused with the foolish outbreaks of rampant emotionalism. The chief mission of this outpoured spirit of the Father and the Son is to teach men about the truths of the Father's love and the Son's mercy. These are the truths of divinity which men can comprehend more fully than all the other divine traits of character. The Spirit of Truth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revelation of the Father's spirit nature and the Son's moral character. The Creator Son, in the flesh, revealed God to men; the Spirit of Truth, in the heart, reveals the Creator Son to men. When man yield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his life, he is simply showing forth the traits which the Master manifested in his own earthly life. When Jesus was on earth, he lived his life as one personality — Jesus of Nazareth. As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new teacher,” the Master has, since Pentecost, been able to live his life anew in the experience of every truth-taught believer.

194:3.2 (2062.11) Many things which happen in the course of a human life are hard to understand,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idea that this is a universe in which truth prevails and in which righteousness triumphs. It so often appears that slander, lies, dishonesty, and unrighteousness — sin — prevail. Does faith, after all, triumph over evil, sin, and iniquity? It does. And the life and death of Jesus are the eternal proof that the truth of goodness and the faith of the spirit-led creature will always be vindicated. They taunted Jesus on the cross, saying, “Let us see if God will come and deliver him.” It looked dark on that day of the crucifixion, but it was gloriously bright on the resurrection morning; it was still brighter and more joyous on the day of Pentecost. The religions of pessimistic despair seek to obtain release from the burdens of life; they crave extinction in endless slumber and rest. These are the religions of primitive fear and dread. The religion of Jesus is a

필사자 인생이, **예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통한 일격을 가했으며; 이 사람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신앙, 용기, 및 확고한 결단력으로 이런 절망스런 직무에 대처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인생에 대처했고, --죽을 때에도-- 인생을 통달했다. 그는 삶에서 풀려나는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또 다른 실존에서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이 생애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이 육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증진시키고 고상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적 실존의 기쁨과 평강을 제공한다.

종교가 사람에게 마취제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마취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거절했으며,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그의 영은 사람을 위로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강력한 세계적 영향력이다.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그 충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며; 진리를 배우는 신자는 이 땅에서 유일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혼이다.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모든 민족적 제약과 인종적 족쇄를 깨뜨렸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다. **진리의 영**은, 이날에 **주님**이 모든 필사자 마다 친히 주시는 선물이 됐다. 천국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자격을 신자들에게 줄 목적으로 이 영이 중여됐지만, 그들은 쏟아 부어진 그 영을 받는 체험을, 자신이 무의식중에 형성한 새 복음의 일부분으로 삼는 실수를 범했다.

진리의 영이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중여됐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 이 영 선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남녀 모두 새로 나타난 선생을 받았으며, 온 세상의 정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됐으며, 진리를 사랑함에 따라서, 그리고 영적 실체들을 파악하고 납득하는 역량만큼, 각자의 혼이 그를 받아들인다. 마침내, 참 종교는 사제{司祭}들 및 모든 신성시되는 계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의 혼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종교는, 가장 고상한 유형의 인간 문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문명에서 가장 고귀한 유형의 영적 인격을 생성하고, 그 사람의 신성함을 선포한다.

오순절에 **진리의 영**이 움으로써, 급진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 종교는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며; 늙은이 나 젊은이에게 지배돼서도 안 된다. **예수**께서 이

new gospel of faith to be proclaimed to struggling humanity. This new religion is founded on faith, hope, and love.

194:3.3 (2063.1) To Jesus, mortal life had dealt its hardest, cruelest, and bitterest blows; and this man met these ministrations of despair with faith, courage, and the unswerving determination to do his Father's will. Jesus met life in all its terrible reality and mastered it — even in death. He did not use religion as a release from life. The religion of Jesus does not seek to escape this life in order to enjoy the waiting bliss of another existence. The religion of Jesus provides the joy and peace of another and spiritual existence to enhance and ennoble the life which men now live in the flesh.

194:3.4 (2063.2) If religion is an opiate to the people, it is not the religion of Jesus. On the cross he refused to drink the deadening drug, and his spirit, poured out upon all flesh, is a mighty world influence which leads man upward and urges him onward. The spiritual forward urge is the most powerful driving force present in this world; the truth-learning believer is the one progressive and aggressive soul on earth.

194:3.5 (2063.3) On the day of Pentecost the religion of Jesus broke all national restrictions and racial fetters. It is forever tru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On this day the Spirit of Truth became the personal gift from the Master to every mortal. This spirit was bestowed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believers more effectively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they mistook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outpoured spirit for a part of the new gospel which they were unconsciously formulating.

194:3.6 (2063.4) Do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Spirit of Truth was bestowed upon all sincere believers; this gift of the spirit did not come only to the apostles. The one hundred and twenty men and women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all received the new teacher, as did all the honest of heart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is new teacher was bestowed upon mankind, and every soul received him in accordance with the love for truth and the capacity to grasp and comprehend spiritual realities. At last, true religion is delivered from the custody of priests and all sacred classes and finds its real manifestation in the individual souls of men.

194:3.7 (2063.5) The religion of Jesus fosters the highest type of human civilization in that it creates the highest type of spiritual personality and proclaims the sacredness of that person.

194:3.8 (2063.6)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on Pentecost made possible a religion which is neither radical nor conservative; it is neither the old nor the new; it is to be dominated neither by the old nor the young. The fact of Jesus' earthly life

땅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은, 시간이라는 닻을 고정시키기 위한 위치를 제공해 주며, 한편 **진리의 영**의 수여는, 그가 실천했던 종교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영구히 확장하고 끝없이 성장하게 만든다. 그 영이 모든 진리 속으로 안내하며; 그 영은, 끝없이 진보하고 신성하게 펼쳐지는 종교, 확장하고 항상 자라가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은, **사람의 아들**의 인품과 본성 속에 너무도 신성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에게 끊임없이 밝혀줄 것이다.

“새로 나타난 선생”의 증여와 관련된 현상,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다양한 종족 및 민족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종교의 보편성을 암시한다. 천국 복음은 특정한 종족이나 문화 또는 언어와 관계되지 않는다.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에게 상속돼 오던 속박 상태에서 **예수**의 종교를 해방시키려고, 그 영이 엄청나게 수고했음이 입증됐다. 심지어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드러나게 부여진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처음에는 개종하는 그들에게 **유대주의**의 요구조건을 강요하려고 했다. 심지어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유대**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가 됐다. 어떤 계시된 종교든지, 어떤 민족적 문화가 그것에 스며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인종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습과 연합될 때에는, 결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다.

진리의 영의 증여는, 모든 형식, 예식, 신성시되는 장소,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맞본 자들의 특별한 행태와 무관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만 침묵 속에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앉아있었을 뿐이다. 그 영은 그 도시에서뿐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도 수여됐다. 사도들은, 그 영을 받을 목적으로, 몇 년 동안 각자 외롭게 묵상하려고 한 적한 곳으로 멀리 떠나있을 필요가 없었다. **오순절**은 언제든지, 각별히 유리한 환경에서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영적 체험의 관념을 분리시킨다.

오순절은, 그 영을 부여함으로써, **주님**의 종교가 물리적인 힘에 전혀 의존하지 않도록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고안됐으며; 이런 새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를 갖추게 됐다. 그들은, 끊임없는 용서, 비길 데 없는 선한 의지, 그리고 풍부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게 됐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며, 진리에 대한 용감하고 생생한 신앙으로 두려움을 파괴시킬 준비가 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제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 신자들은 **야훼**를 더 이상 “**만군의 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신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및 **아버지**”로 간주하게 됐다. **하나님**이 각 개인의 영적 **아**

provides a fixed point for the anchor of time, while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provides for the everlasting expansion and endless growth of the religion which he lived and the gospel which he proclaimed. The spirit guides into all truth; he is the teacher of an expanding and always-growing religion of endless progress and divine unfolding. This new teacher will be forever unfolding to the truth-seeking believer that which was so divinely folded up in the person and nature of the Son of Man.

194:3.9 (2064.1) The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the bestowal of the “new teacher,” and the reception of the apostles’ preaching by the men of various races and nations gathered together at Jerusalem, indicate the universality of the religion of Jesus. The gospel of the kingdom was to be identified with no particular race, culture, or language. This day of Pentecost witnessed the great effort of the spirit to liberate the religion of Jesus from its inherited Jewish fetters. Even after this demonstration of pouring out the spirit upon all flesh, the apostles at first endeavored to impose the requirements of Judaism upon their converts. Even Paul had trouble with his Jerusalem brethren because he refused to subject the gentiles to these Jewish practices. No revealed religion can spread to all the world when it makes the serious mistake of becoming permeated with some national culture or associated with established racial, social, or economic practices.

194:3.10 (2064.2)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was independent of all forms, ceremonies, sacred places, and special behavior by those who received the fullness of its manifestation. When the spirit came upon those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they were simply sitting there, having just been engaged in silent prayer. The spirit was bestowed in the country as well as in the city.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apostles to go apart to a lonely place for years of solitary meditation in order to receive the spirit. For all time, Pentecost disassociates the idea of spiritual experience from the notion of especially favorable environments.

194:3.11 (2064.3) Pentecost, with its spiritual endowment, was designed forever to loose the religion of the Master from all dependence upon physical force; the teachers of this new religion are now equipped with spiritual weapons. They are to go out to conquer the world with unfailing forgiveness, matchless good will, and abounding love. They are equipped to overcome evil with good, to vanquish hate by love, to destroy fear with a courageous and living faith in truth. Jesus had already taught his followers that his religion was never passive; always were his disciples to be active and positive in their ministry of mercy and in their manifestations of love. No longer did these believers look upon Yahweh as “the Lord of Hosts.” They now regarded the eternal Deity as

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진리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패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런 진보는 이뤘다.

오순절은, 개인의 무례를 용서하는 능력, 가장 심각하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상냥할 수 있는 능력, 무시무시한 위험에 직면해서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과 관용으로 두려움 없이 행동하여 미움과 분노의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필사적 사람에게 부여했다. **유란시아**는 자체 역사에서 엄청난 파괴적 전쟁들로 인한 참혹한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런 끔찍한 투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좌절을 체험했다. 승리자는 하나였으며, 이런 비참한 투쟁들에서, 드높아진 명성과 함께 떠오른 승리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 **나사렛 예수** 그리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의 복음이었다. 더 나은 문명의 비결은,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한 **주님**의 교훈, 즉 상호적 신뢰와 사랑의 선한 의지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오순절이 있기 전에는, 종교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 드러내 왔었다면,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발견하신 후에는 그에게 내주하기 위해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광경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오순절에 최고조에 달했던 **예수**의 교훈이 있기 전에는, 여자들은 전통적 종교의 테두리 속에서 영적 지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순절** 이후로, 여자는 천국의 형제관계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 영의 이런 특별한 방문을 받은 120명 중에는 여제자가 다수 있었고, 그들은 이 복을 남자 신도와 동등하게 누렸다. 종교 예배를 위한 성직자의 자리를, 더 이상은 남자만 독점할 수 없게 됐다. **바리새인**은, “여자나 나병 환자 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여자는 모든 종교적 성{性} 차별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오순절**은, 종족의 구별, 문화적 차이, 사회 신분계층, 또는 성적{性的} 편견에 근간을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새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외쳤던 것은 당연하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도 120명의 신자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쏟아 부어진 영을 이런 일반 제자들 가운데 일원으로서 받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恩賜}를 받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예수**의 가족의 일원이라 해서 특별한 다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 계급과, 신성시되는 혈통에 대한 모든 믿음을 종식{終熄}시켰다.

사도들은 **오순절**이 있기 전에 **예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희생했다. 그들

the “God and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made that progress, at least, even if they did in some measure fail fully to grasp the truth that God is also the spiritual Father of every individual.

194:3.12 (2064.4) Pentecost endowed mortal man with the power to forgive personal injuries, to keep sweet in the midst of the gravest injustice, to remain unmoved in the face of appalling danger, and to challenge the evils of hate and anger by the fearless acts of love and forbearance. Urantia has passed through the ravages of great and destructive wars in its history. All participants in these terrible struggles met with defeat. There was but one victor; there was only one who came out of these embittered struggles with an enhanced reputation — that was Jesus of Nazareth and his gospel of overcoming evil with good. The secret of a better civilization is bound up in the Master’s teachings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good will of love and mutual trust.

194:3.13 (2065.1) Up to Pentecost, religion had revealed only man seeking for God; since Pentecost, man is still searching for God, but there shines out over the world the spectacle of God also seeking for man and sending his spirit to dwell within him when he has found him.

194:3.14 (2065.2) Before the teachings of Jesus which culminated in Pentecost, women had little or no spiritual standing in the tenets of the older religions. After Pentecost, in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woman stood before God on an equality with man. Among the one hundred and twenty who received this special visitation of the spirit were many of the women disciples, and they shared these blessings equally with the men believers. No longer can man presume to monopolize the ministry of religious service. The Pharisee might go on thanking God that he was “not born a woman, a leper, or a gentile,” but among the followers of Jesus woman has been forever set free from all religious discriminations based on sex. Pentecost obliterated all religious discrimination founded on racial distinction, cultural differences, social caste, or sex prejudice. No wonder these believers in the new religion would cry ou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194:3.15 (2065.3) Both the mother and brother of Jesus were present among the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and as members of this common group of disciples, they also received the outpoured spirit. They received no more of the good gift than did their fellows. No special gift was bestowed upon the members of Jesus’ earthly family. Pentecost marked the end of special priesthoods and all belief in sacred families.

194:3.16 (2065.4) Before Pentecost the apostles had given up much for Jesus. They had sacrificed their homes, families, friends, worldly goods, and

은 오순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곧 사람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보내심으로써--응답하였다. 자아를 버리고 그 영을 받는 이 체험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었으며; 지성적 자아-복종과 무조건적 헌신의 행동이었다.

오순절이,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 통일을 가져왔다. 그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났다. “신자들 무리 가운데는 오직 하나의 마음과 혼만 있었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맞는 말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에 알려진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합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오순절은, 각 개인, 집단, 민족, 및 종족의 자기-독단을 줄여주도록 고안됐다. 너무 팽창하면 파괴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경감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독단이라는 기질이다. 인류는 영적 접근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세계의 보편적인 영향력이다.

진리의 영의 도래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을 인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한다. 이기심이라는 물질적 기질은, 사심 없는 이런 새로운 영적 증여 속에 흡수됐다. 오순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인 예수께서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신성한 아들이 됐음을 나타낸다. 쏟아 부어진 이 영이 주는 기쁨은, 인간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체험될 때, 건강을 위한 강장제(強壯劑), 정신을 향한 자극, 그리고 혼을 위한 부단한 힘이 된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는 개별 신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용 역량을 결정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기도가 신성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그럽게 수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기도와 참된 경배를 통해서, 조물주와 중단 없는 교류를 유지하기를 잊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혼 속에 신성한 증여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더 크고 더 깊은 경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4. 그리스도교 교회의 시작

예수께서 적에게 갑자기 체포되고, 두 강도 사이에서 그토록 신속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사도와 제자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었다. 체포되고, 묶이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 대한 기억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과 경고를 잊고 있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positions. At Pentecost they gave themselves to God, and the Father and the Son responded by giving themselves to man — sending their spirits to live within men. This experience of losing self and finding the spirit was not one of emotion; it was an act of intelligent self-surrender and unreserved consecration.

194:3.17 (2065.5) Pentecost was the call to spiritual unity among gospel believers. When the spirit descended on the disciples at Jerusalem, the same thing happened in Philadelphia, Alexandria, and at all other places where true believers dwelt. It was literally true that “there was but one heart and soul among the multitude of the believers.” The religion of Jesus is the most powerful unifying influence the world has ever known.

194:3.18 (2065.6) Pentecost was designed to lessen the self-assertiveness of individuals, groups, nations, and races. It is this spirit of self-assertiveness which so increases in tension that it periodically breaks loose in destructive wars. Mankind can be unified only by the spiritual approach, and the Spirit of Truth is a world influence which is universal.

194:3.19 (2065.7)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purifies the human heart and leads the recipient to formulate a life purpose single to the will of God and the welfare of men. The material spirit of selfishness has been swallowed up in this new spiritual bestowal of selflessness. Pentecost, then and now, signifies that the Jesus of history has become the divine Son of living experience. The joy of this outpoured spirit, when it is consciously experienced in human life, is a tonic for health, a stimulus for mind, and an unfailing energy for the soul.

194:3.20 (2065.8) Prayer did not bring the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but it did have much to do with determining the capacity of receptivity which characterized the individual believers. Prayer does not move the divine heart to liberality of bestowal, but it does so often dig out larger and deeper channels wherein the divine bestowals may flow to the hearts and souls of those who thus remember to maintain unbroken communion with their Maker through sincere prayer and true worship.

4. BEGINNINGS OF THE CHRISTIAN CHURCH

194:4.1 (2066.1) When Jesus was so suddenly seized by his enemies and so quickly crucified between two thieves, his apostles and disciples were completely demoralized. The thought of the Master, arrested, bound, scourged, and crucified, was too much for even the apostles. They forgot his teachings and his warnings. He might, indeed,

말씀과 행위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리라고 희망하는 **메시아**는 될 수 없었다.

부활이 이뤄지자,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났고, **주님**의 신성{神性}에 대한 신앙이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여러 번 그를 봤고 그와 함께 대화했으며, 그가 그들을 **감람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능력을 부여받을 때까지--곧 **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 선생이 도래했으며, 그들은 즉시 나가서 새로운 능력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실패한 죽은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를 담대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자들이었다. **주님**은 이런 복음 전파자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정신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며; 그들의 혼 속에 생생하게 현존하시게 됐다.

“그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계속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 모든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모두 그 영으로 충만했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믿는 대중은 한 마음과 혼에 속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나가서 전파하도록 **예수**께서 임명하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소유했으며; 새로운 체험으로 불붙었으며;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경됐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한 인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예지{觀智}에 따라 넘겨진 바 된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살해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나타내신 것을 그가 이렇게 이루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바른 편으로 올라갔고, **아버지**로부터 그 영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그 영을 쏟아부어주셨다. 너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즉 만물이 소멸될 때까지 하늘이 받아 둘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시도록 회개하라.”

천국 복음, 즉 **예수**의 메시지는,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변경됐다. 그들은 이제, 그의 생애, 죽음, 및 부활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으며, 자신이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속히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초기 신자들은, 그가 초림{初臨}한

have been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but he could hardly be the Messiah they had hoped would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194:4.2 (2066.2) Then comes the resurrection, with its deliverance from despair and the return of their faith in the Master's divinity. Again and again they see him and talk with him, and he takes them out on Olivet, where he bids them farewell and tells them he is going back to the Father. He has told them to tarry in Jerusalem until they are endowed with power — until the Spirit of Truth shall come. And on the day of Pentecost this new teacher comes, and they go out at once to preach their gospel with new power. They are the bold and courageous followers of a living Lord, not a dead and defeated leader. The Master lives in the hearts of these evangelists; God is not a doctrine in their minds; he has become a living presence in their souls.

194:4.3 (2066.3) “Day by day they continued steadfastly and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at home. They took their food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nd the multitudes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said that aught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d was his own, and they had all things in common.”

194:4.4 (2066.4) What has happened to these men whom Jesus had ordained to go forth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They have a new gospel; they are on fire with a new experience; they are filled with a new spiritual energy. Their message has suddenly shif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risen Christ: “Jesus of Nazareth, a man God approved by mighty works and wonders; him, being delivered up by the determinate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did crucify and slay. The things which God foreshadowed by the mouth of all the prophets, he thus fulfilled. This Jesus did God raise up.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Being, by the right hand of God, exalte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spirit, he has poured forth this which you see and hear. Repent,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that the Father may send the Christ, who has been appointed for you, even Jesus, whom the heaven must receive until the times of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4.5 (2066.5)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message of Jesus, had been suddenly changed into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now proclaimed the facts of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nd preached the hope of his speedy return to this world to finish the work he began.

사실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그의 재림{再臨}에 대한 희망, 즉 매우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하는 사건을 가르치게 됐다.

그리스도는, 신속하게 형성되는 교회의 교리가 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살아있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며; 그 영을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사고{思考}를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그들은, “**하나님은 주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새로운 교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모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원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놀랍게 나타난 형제간의 사랑과, 전례 없는 친절함이, 이런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솟아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제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천국{家族天國}에서 나누는 형제간의 교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친절함은, **예수**의 증여 개념에서 발생한 사랑 때문이었고, 필사적 사람의 형제관계를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예수**에 관한 그들의 교훈에 모든 사람이 매혹되는, 그런 새롭고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 그들은, 천국 복음 대신, 그 복음에 관한 활기차고 예증이 되는 해설을 동원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인류가 일찍이 알게 된 종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였다.

틀림없이, 새 공동체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속에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했으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 그것은 삶의 교제였을 뿐만 아니라 경배의 교제였다. 법률로 인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려는 열망으로 인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세상의 소유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눈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특색이 아니었으며;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천국을 완전히 이룰 것에 대해, 이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나 선의에서 시도했던 형제간의 이런 경솔한 사랑의 최종 결과는, 비탄을 낳는 참담한 것이었다. 수천 명의 진지한 신자가 부동산을 팔았고, 자본이 되는 모든 재물과 기타 생산적인 자산 일체를 처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인**의 자산은 줄어들었고, “둥둥한 분배”는 끝나게 됐다--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모금하게 됐다.

이 무렵에, 그들은 **주의 만찬**을, 설립시의 방

Thus the message of the early believers had to do with preaching about the facts of his first coming and with teaching the hope of his second coming, an event which they deemed to be very near at hand.

194:4.6 (2067.1) Christ was about to become the creed of the rapidly forming church. Jesus lives; he died for men; he gave the spirit; he is coming again. Jesus filled all their thoughts and determined all their new concept of God and everything else. They were too much enthused over the new doctrine that “God is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to be concerned with the old message that “God is the loving Father of all men,” even of every single individual. True, a marvelous manifestation of brotherly love and unexampled good will did spring up in these early communities of believers. But it was a fellowship of believers in Jesus, not a fellowship of brothers in the family kingdom of the Father in heaven. Their good will arose from the love born of the concept of Jesus’ bestowal and not from the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mortal man. Nevertheless, they were filled with joy, and they lived such new and unique lives that all men were attracted to their teachings about Jesus. They made the great mistake of using the living and illustrativ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the kingdom for that gospel, but even that represented the greatest religion mankind had ever known.

194:4.7 (2067.2) Unmistakably, a new fellowship was arising in the world. “The multitude who believed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teaching and fellowship, 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They called each other brother and sister; they greeted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they ministered to the poor. It was a fellowship of living as well as of worship. They were not communal by decree but by the desire to share their goods with their fellow believers. They confidently expected that Jesus would return to complete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during their generation. This spontaneous sharing of earthly possessions was not a direct feature of Jesus’ teaching; it came about because these men and women so sincerely and so confidently believed that he was to return any day to finish his work and to consummate the kingdom. But the final results of this well-meant experiment in thoughtless brotherly love were disastrous and sorrow-breeding. Thousands of earnest believers sold their property and disposed of all their capital goods and other productive assets.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dwindling resources of Christian “equal-sharing” came to an end — but the world did not. Very soon the believers at Antioch were taking up a collection to keep their fellow believers at Jerusalem from starving.

194:4.8 (2067.3) In these days they celebrated the

법에 따라서 거행했으며; 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 그렇게 친교하는 공동 식사를 위해 모였고, 식사 후에 성찬식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만; 20년 정도 흐른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신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세례였다. 그들은 아직 아무런 조직도 갖추지 못했으며; 그것은 단순히 **예수** 형제단체였다.

이런 **예수** 교파는 신속하게 확장됐고, **사두개인이** 다시 그들을 주목하게 됐다. **바리새인**은, 그 교훈 가운데서 아무 것도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에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런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예수** 교파의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했고, 지도적 랍비 가운데 하나인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설득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는데; 그는, “이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결국 없어질 것이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생겨났다면, 너희가 없애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으며, **예수**에 관한 복음이 신속히 퍼져 나가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정이 잠시 계속됐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많은 숫자의 **그리스인**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로단**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그들이 초기에 개종시킨 사람 중에는 **스데반**과 **바나바**도 있었다. 유능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의 관점과 많이 달랐으며, **유대인**의 경배와 기타 예식 풍습을 잘 시행하지 않았다. 이 **그리스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 형제단체와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됐다. **스데반**과 **그리스인** 동역자는 **예수**의 가르침에 더 가깝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곧 **유대인** 관리들과 충돌하게 됐다.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전한 설교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가 강론 도중에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길만한 말을 하자, 모든 공식 심문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 버렸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 거주민의 지도자였으며, 그렇게 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일에 새로운 신앙과 특별한 원인을 제공하는, 첫 순교자가 됐다. 이런 새로운 위기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 신앙 속에서 한 교파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됐음을 깨닫게 됐다. 그들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따로 독립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며; **스데반**이 죽은 후 한 달이 못되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지도 아래 교회가 조직됐고, 명목상 우두머리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임명됐다.

Lord's Supper after the manner of its establishment; that is, they assembled for a social meal of good fellowship and partook of the sacrament at the end of the meal.

194:4.9 (2067.4) At first they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it was almost twenty years before they began t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aptism was all that was required for admission into the fellowship of believers. They had no organization as yet; it was simply the Jesus brotherhood.

194:4.10 (2067.5) This Jesus sect was growing rapidly, and once more the Sadducees took notice of them. The Pharisees were little bothered about the situation, seeing that none of the teachings in any way interfered with the observance of the Jewish laws. But the Sadducees began to put the leaders of the Jesus sect in jail until they were prevailed upon to accept the counsel of one of the leading rabbis, Gamaliel, who advised them: “Refrain from these men and let them alone, for if this counsel or this work is of men, it will be overthrown; but if it is of God, you will not be able to overthrow them, lest haply you be found even to be fighting against God.” They decided to follow Gamaliel's counsel, and there ensued a time of peace and quiet in Jerusalem, during which the new gospel about Jesus spread rapidly.

194:4.11 (2068.1) And so all went well in Jerusalem until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Greeks in large numbers from Alexandria. Two of the pupils of Rodan arrived in Jerusalem and made many converts from among the Hellenists. Among their early converts were Stephen and Barnabas. These able Greeks did not so much have the Jewish viewpoint, and they did not so well conform to the Jewish mode of worship and other ceremonial practices. And it was the doings of these Greek believers that terminated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Jesus brotherhood and the Pharisees and Sadducees. Stephen and his Greek associate began to preach more as Jesus taught, and this brought them into immediate conflict with the Jewish rulers. In one of Stephen's public sermons, when he reached the objectionable part of the discourse, they dispensed with all formalities of trial and proceeded to stone him to death on the spot.

194:4.12 (2068.2) Stephen, the leader of the Greek colony of Jesus' believers in Jerusalem, thus became the first martyr to the new faith and the specific cause for the formal organization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This new crisis was met by the recognition that believers could not longer go on as a sect within the Jewish faith. They all agreed that they must separate themselves from unbelievers; and within one month from the death of Stephen the church at Jerusalem had been organized under the leadership of Peter, and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새로 잔인한 박해를 시작했고, 그리하여 **예수**에 관한 새 종교를 가르치는 적극적인 선생들이 **예수**를 전파하면서 제국의 변방{邊方}을 향해 퍼져 나갔는데, 이 종교는 나중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됐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도적 역할을 **그리스인**이 했으며;이 첫 선교사들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알렉산더**가 행진했던 길을 따라갔는데, **가자**와 **두로**로 통하는 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으며, 이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다음에는 **로마**를 지나서 제국의 변두리 지방까지 퍼져 나갔다.

James the brother of Jesus had been installed as its titular head.

194:4.13 (2068.3) And then broke out the new and relentless persecutions by the Jews, so that the active teachers of the new religion about Jesus, which subsequently at Antioch was called Christianity, went forth to the ends of the empire proclaiming Jesus. In carrying this message, before the time of Paul the leadership was in Greek hands; and these first missionaries, as also the later ones, followed the path of Alexander's march of former days, going by way of Gaza and Tyre to Antioch and then over Asia Minor to Macedonia, then on to Rome and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mpire.

제 195편. 오순절 이후

⇨ 194

유랜시아 책

196 ⇨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 195편
오순절 이후

섹션

소개

1. 그리스인의 영향
2. 로마의 영향
3. 로마 제국의 지배
4. 유럽의 암흑기
5. 현대의 문제점
6. 유물론
7. 유물론의 취약점
8. 세속적 전체주의
9. 그리스도교의 문제점
10. 미래

PAPER 195

AFTER PENTECOST

SECTIONS

Introduction

1. Influence of the Greeks
2. The Roman Influence
3. Under the Roman Empire
4. The European Dark Ages
5. The Modern Problem
6. Materialism
7. The Vulnerability of Materialism
8. Secular Totalitarianism
9. Christianity's Problem
10. The Future

소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한 설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고하는 사도들 대다수의 훗날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확정할 정도로 대단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교** 교회의 실제 설립자였으며, **바울**은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전파했고, 그것을 **그리스인** 신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렸다.

전통에 매이고 사제에게 지배된 **히브리인**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곧 나중의 **그리스도교**) 역시 거부했지만, 그 외의 **로마 제국**은, 진화하는 **그리스도교**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었다. 당시에 **서방** 문명은 지적이었고, 전쟁에 지쳤으며, 기존의 모든 종교와 우주철학에 완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리스** 문화의 혜택을 입은 **서방** 세계의 민족들은, 매우 오래된 전통을 숭배했다. 그들은, 철학, 예술, 문학,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서 물려받은 위대한 업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그들에게는 혼

INTRODUCTION

195:0.1 (2069.1) THE results of Peter's preaching on the day of Pentecost were such as to decide the future policies, and to determine the plans, of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in their effort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Peter was the real founder of the Christian church; Paul carried the Christian message to the gentiles, and the Greek believers carried it to the whole Roman Empire.

195:0.2 (2069.2) Although the tradition-bound and priest-ridden Hebrews, as a people, refused to accept either Jesus'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or Peter's and Paul's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Christ (subsequent Christianity), the rest of the Roman Empire was found to be receptive to the evolving Christian teachings. Western civilization was at this time intellectual, war weary, and thoroughly skeptical of all existing religions and universe philosophies. The peoples of the Western world, the beneficiaries of Greek culture, had a revered tradition of a great past.

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없었다. 그들의 영적 갈망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인간 사회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예수**의 교훈이 갑자기 밀려왔다. 새로운 삶의 체제가, 굶주린 마음의 이 **서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제시됐다. 이런 상황은, 전통적 종교 관습과, 세계를 향한 **예수**의 메시지의 새로운 **그리스도교**화된 해석, 이 둘 사이의 즉각적인 갈등을 의미했다. 그런 갈등은 필연적으로, 새 것이 승리하든지, 옛 것이 승리하든지,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든지 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는 그 투쟁이 절충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는, 어느 한 민족도 한 두 세대 동안에 동화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다. **예수**께서 사람의 혼에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영적 호소가 아니었으며; 종교 제례, 교육, 마법, 의술, 예술, 문학, 법, 정부, 도덕, 성(性)에 관한 규칙, 일부다처제,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제도에 대해서까지, 일찍부터 일방적인 허세를 부렸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새 종교로서--곧 **로마 제국** 전체와 **동양** 전체가 고대하고 있던 어떤 것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새로운 체제**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자만심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_도덕적 충돌을 신속히 촉진시켰다. **예수**께서 제시한 그 이상(理想)은, **그리스** 철학으로 재해석되고 **그리스도교** 속에서 사회화됨으로써, 이제 **서방** 문명의 윤리, 도덕, 및 종교들 속에 구원돼 있는 인간 종족의 전통에 대담하게 도전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교**가 오직 사회적 및 경제적 비교적 낮은 계층 사람들만 개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리스_로마**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 **그리스도교** 믿음이라는 이 새로운 체제, 즉 삶의 목적과 실존의 목표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으로 점점 더 전환됐다.

유대인에게서 기원된, 고향 땅에서는 거의 실패했던, 새로운 이 메시지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효과적으로 **로마 제국**의 최고 지성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철학적 종교들과 신비적 이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 조직. **바울**은 위대한 조직가였고 그의 후예들은 그와 보조를 맞췄다.

2. **그리스도교**가 철저히 **헬라화** 됐다. 최고의 **그리스** 철학뿐 아니라 **히브리** 신학의 정수(精髓)를 포용(包容)했다.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롭고 위대한 **이상(理想)**, 즉 **예수**가 증여한 생명의 흔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메시지의 영향을 담고 있었다.

They could contemplate the inheritance of great accomplishments in philosophy, art, literature, and political progress. But with all these achievements they had no soul-satisfying religion. Their spiritual longings remained unsatisfied.

195:0.3 (2069.3) Upon such a stage of human society the teachings of Jesus, embraced in the Christian message, were suddenly thrust. A new order of living was thus presented to the hungry hearts of these Western peoples. This situation meant immediate conflict between the older religious practices and the new Christianized version of Jesus' message to the world. Such a conflict must result in either decided victory for the new or for the old or in some degree of *compromise*. History shows that the struggle ended in compromise. Christianity presumed to embrace too much for any one people to assimilate in one or two generations. It was not a simple spiritual appeal, such as Jesus had presented to the souls of men; it early struck a decided attitude on religious rituals, education, magic, medicine, art, literature, law, government, morals, sex regulation, polygamy, and, in limited degree, even slavery. Christianity came not merely as a new religion — something all the Roman Empire and all the Orient were waiting for — but as a *new order of human society*. And as such a pretension it quickly precipitated the social-moral clash of the ages. The ideals of Jesus, as they were reinterpreted by Greek philosophy and socialized in Christianity, now boldly challenged the traditions of the human race embodied in the ethics, morality, and religions of Western civilization.

195:0.4 (2069.4) At first, Christianity won as converts only the lower social and economic strata. But by the beginning of the second century the very best of Greco-Roman culture was increasingly turning to this new order of Christian belief, this new concept of the purpose of living and the goal of existence.

195:0.5 (2070.1) How did this new message of Jewish origin, which had almost failed in the land of its birth, so quickly and effectively capture the very best minds of the Roman Empire? The triumph of Christianity over the philosophic religions and the mystery cults was due to:

195:0.6 (2070.2) 1. Organization. Paul was a great organizer and his successors kept up the pace he set.

195:0.7 (2070.3) 2. Christianity was thoroughly Hellenized. It embraced the best in Greek philosophy as well as the cream of Hebrew theology.

195:0.8 (2070.4) 3. But best of all, it contained a new and great *ideal*, the echo of the life bestowal of Jesus and the reflection of his message of salvation for all mankind.

4.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미트라교**와 기꺼이 그렇게 타협함으로써, **미트라교**를 신봉하는 자들 가운데 상위 절반이 **안디옥** 종파에 흡수됐다.

5. 마찬가지로, 그다음 세대와 차후 세대들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도 이교 사상과 더 타협했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마저 새 종교에 설복될 정도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은, **바울**의 **그리스도교**라는 **헬라**화 된 개정판(改訂版)을 받아들이라고 이교도에게 강요하면서 이교의 화려한 제례식을 채택함으로써, 이교도와 약삭빠른 거래를 했다. 그들은 **미트라** 숭배자와 맺었던 것보다는 이교도와 더 나은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극심한 부도덕뿐 아니라, **페르시아** 신비 사상의 비난받을 만한 다른 수많은 관습을 성공적으로 제거시켰다는 점에서는, 그런 초기 타협에서도 정복자 이상으로 성공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현명하게 또는 어리석게, **예수**의 **관념** 가운데 다수를 지키고 촉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이상**(理想)을 고의로 손상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탁월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손상된 **주님**의 이상은 여전히 그의 복음에 숨어있고, 결국 그 이상의 완전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이교화(異敎化)됨으로써, 제례식의 특징에서 옛 체제가 하찮은 승리를 여러 번 했지만,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세했다:

1. 인간의 도덕 면에서 훨씬 높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2. **하나님**에 대한 매우 확대된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줬다.

3. 불멸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공인된 종교가 주는 확신의 일부분이 됐다.

4. **나사렛 예수**를 사람의 갈급한 혼에게 제시했다.

예수께서 가르쳤던 위대한 진리 중에서 많은 것이 이런 초기 타협에서 거의 분실됐지만, 그것들은 이교화 된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 또한 **사람의 아들**의 생애와 교훈의 **바울** 개정판(改訂版)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미처 이교화 되기 전에 먼저 철저히 **헬라**화 됐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인**에게 많이, 무척 많이 빚졌다. **니케아**에서 소집된 회의가 **예수**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가로막아서, 그의 증여에 대한 참된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토록 용감하게 일어나서 겁내지 않고 싸움으로써 용기 있게 그것을 저지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그리스인**이었다. 이 **그리스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였고, 이 신자의 논리와 웅변술이 아니었다면, **아리우**

195:0.9 (2070.5) 4. The Christian leaders were willing to make such compromises with Mithraism that the better half of its adherents were won over to the Antioch cult.

195:0.10 (2070.6) 5. Likewise did the next and later generations of Christian leaders make such further compromises with paganism that even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was won to the new religion.

195:0.11 (2070.7) But the Christians made a shrewd bargain with the pagans in that they adopted the ritualistic pageantry of the pagan while compelling the pagan to accept the Hellenized version of Pauline Christianity. They made a better bargain with the pagans than they did with the Mithraic cult, but even in that earlier compromise they came off more than conquerors in that they succeeded in eliminating the gross immoralities and also numerous other reprehensible practices of the Persian mystery.

195:0.12 (2070.8) Wisely or unwisely, these early leaders of Christianity deliberately compromised the *ideals* of Jesus in an effort to save and further many of his *ideas*. And they were eminently successful. But mistake not! these compromised ideals of the Master are still latent in his gospel, and they will eventually assert their full power upon the world.

195:0.13 (2070.9) By this paganization of Christianity the old order won many minor victories of a ritualistic nature, but the Christians gained the ascendancy in that:

195:0.14 (2070.10) 1. A new and enormously higher note in human morals was struck.

195:0.15 (2070.11) 2. A new and greatly enlarged concept of God was given to the world.

195:0.16 (2070.12) 3. The hope of immortality became a part of the assurance of a recognized religion.

195:0.17 (2070.13) 4. Jesus of Nazareth was given to man's hungry soul.

195:0.18 (2070.14) Many of the great truths taught by Jesus were almost lost in these early compromises, but they yet slumber in this religion of paganized Christianity, which was in turn the Pauline version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the Son of Man. And Christianity, even before it was paganized, was first thoroughly Hellenized. Christianity owes much, very much, to the Greeks. It was a Greek, from Egypt, who so bravely stood up at Nicaea and so fearlessly challenged this assembly that it dared not so obscure the concept of the nature of Jesus that the real truth of his bestowal might have been in danger of being lost to the world. This Greek's name was Athanasius, and but for the eloquence and the logic of this believer, the persuasions of

스의 설득력이 승리했을 것이다.

Arius would have triumphed.

1. 그리스인의 영향

그리스도교의 헬라화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회의회에 출두하여,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관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의미심장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기에 드리워진 **아크로폴리스** 성채(城砦) 그늘 아래서, 이 **로마** 시민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인**에게, **갈릴리 유대** 땅에서 발생했던 새 종교에 대한 자신의 개정판을 선포했다. **그리스** 철학과 **예수**의 여러 가르침 사이에는 이상하게 비슷한 무엇이 있었다. 이것들은 공통 목적을 지녔다--둘 다 **개인의** 등장을 추구했다. **그리스인**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 **예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해방이 목적이었다. **그리스인**은 정치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지적 자유주의를 가르쳤으며; **예수**는 종교적 자유로 인도하는 영적 자유주의를 가르쳤다. 이 두 관념은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는 새롭고 강력한 현장을 수립했으며;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및 영적 자유를 예시했다.

그리스도교가 존재하게 되고, 투쟁 관계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었다:

1. 새롭고 선한 개념이라면, **유대인**에게서라도 기꺼이 받아들인 **그리스** 정신.

2.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자발적이지만 빈틈없고 영리한 타협자였으며; 예리한 신학 거래자였다.

바울이 **아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전파했을 때, **그리스인**은 영적으로 굶주렸으며; 영적 진리에 대해 궁금해 하고, 흥미를 가졌고, 실제로 찾고 있었다. **로마인**은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배척한 반면, **그리스인**은 그것을 포용했으며, **그리스** 문화의 일부분인 것처럼 변경해서, 나중에 **로마인**에게 이런 새 종교를 받아들일도록 몹시 압력을 가한 것은 바로 **그리스인**이었다.

그리스인은 미를, **유대인**은 거룩함을 숭상했지만, 두 민족 모두 진리를 사랑했다. **그리스인**은 수세기 동안, 종교를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곤사회, 경제, 정치, 및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하고 솔직하게 논쟁했다.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인**은 거의 없었으며; 자신의 종교조차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수세기 동안 종교에 매진하면서 다른 사고 분야에는 무관심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너무 심각했고, 도가 지나쳤다. **예수**께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조명되자, 수세기에 걸쳐서 이 두 민족의 사고가 결합하여 생성한 산물은, 이제 새로운 인간 사회 체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새로운 종교적 신념 및 관습 체제의 추진력이 됐다.

1. INFLUENCE OF THE GREEKS

195:1.1 (2071.1) The Hellenization of Christianity started in earnest on that eventful day when the Apostle Paul stood before the council of the Areopagus in Athens and told the Athenians about “the Unknown God.” There, under the shadow of the Acropolis, this Roman citizen proclaimed to these Greeks his version of the new religion which had taken origin in the Jewish land of Galilee. And there was something strangely alike in Greek philosophy and many of the teachings of Jesus. They had a common goal — both aimed at the *emergence of the individual*. The Greek, at social and political emergence; Jesus, at moral and spiritual emergence. The Greek taught intellectual liberalism leading to political freedom; Jesus taught spiritual liberalism leading to religious liberty. These two ideas put together constituted a new and mighty charter for human freedom; they presaged man’s social, political, and spiritual liberty.

195:1.2 (2071.2) Christianity came into existence and triumphed over all contending religions primarily because of two things:

195:1.3 (2071.3) 1. The Greek mind was willing to borrow new and good ideas even from the Jews.

195:1.4 (2071.4) 2. Paul and his successors were willing but shrewd and sagacious compromisers; they were keen theologic traders.

195:1.5 (2071.5) At the time Paul stood up in Athens preaching “Christ and Him Crucified,” the Greeks were spiritually hungry; they were inquiring, interested, and actually looking for spiritual truth. Never forget that at first the Romans fought Christianity, while the Greeks embraced it, and that it was the Greeks who literally forced the Romans subsequently to accept this new religion, as then modified, as a part of Greek culture.

195:1.6 (2071.6) The Greek revered beauty, the Jew holiness, but both peoples loved truth. For centuries the Greek had seriously thought and earnestly debated about all human problems —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 — except religion. Few Greeks had paid much attention to religion; they did not take even their own religion very seriously. For centuries the Jews had neglected these other fields of thought while they devoted their minds to religion. They took their religion very seriously, too seriously. As illuminated by the content of Jesus’ message, the united product of the centuries of the thought of these two peoples now became the driving power of a new order of human society and, to a certain extent, of

그리스 문명의 영향은,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근동** 지역에 퍼뜨렸을 때, 이미 **지중해** 서쪽 지방에 침투해 들어가 있었다. **그리스인**은, 작은 도시_국가들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종교와 정치에 잘 조화됐지만, **마케도니아** 왕이 **그리스**를 대담하게 하나의 제국으로 확장시켜서, **아드리아해**에서 **인더스**까지 뻗어 나갈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의 확장 과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경영이나 종교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스**의 도시_국가들이 제국으로 확장된 후에, 그들의 상당히 편협한 신들은 다소 조잡한 것처럼 보였다. 더 오래된 **유대** 종교의 **그리스도교**화 된 개정판이 그들에게 소개됐을 때, **그리스인**은 유일한 **하나님**, 즉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었다.

헬라 제국이 그렇게는 지탱될 수 없었다. 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됐지만, 제국의 경영을 위해 **로마**의 정치적 천재성이 **서방**으로부터 확보된 후, 그리고 제국을 품위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소유한 종교가 **동방**에서 유입된 후에야 유지됐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에, **헬라** 문화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미 쇠퇴기가 시작됐으며; 학문은 발전했지만, 비범한 재능은 쇠퇴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교** 속에 부분적으로 흡수돼 있는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그리스** 문화와 학문을 구출하는 역할을 일부 감당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문화적 선물을 **동방**에 강제로 전수했으며; **바울**은 **예수**의 복음의 **그리스도교** 개정판으로 **서방**을 공략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보급된 **서방** 전역 어느 곳이든지,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의 **동방** 개정판은, 그의 교훈에 비교적 더 일치하도록 유지됐어도, 타협하지 않는 **아브넬**의 태도를 계속 따랐다. **헬라화** 된 개정판과는 달리, 그것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슬람** 운동에 휩쓸려 없어져 버렸다.

2. 로마의 영향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제비뽑기로 통치권을 결정하는 대신에 대의{代議} 정부를 채택했다. 미지의 언어, 민족, 그리고 심지어 종교들에 대해서도 아량을 베푸는 새로운 태도를, **로마**가 **서방** 세계 전역에 퍼지게 한 점에서, 이런 변화가 당장에는 **그리스도교**에 유리하게 됐다.

로마에서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교인** 박해는, 그들이 전도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왕국 {kingdom}”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때문이었을 뿐이다. **로마인**은, 어느 종교든지, 그리고 모든 종교

a new order of human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195:1.7 (2071.7) The influence of Greek culture had already penetrated the lands of the western Mediterranean when Alexander spread Hellenistic civilization over the near-Eastern world. The Greeks did very well with their religion and their politics as long as they lived in small city-states, but when the Macedonian king dared to expand Greece into an empire, stretching from the Adriatic to the Indus, trouble began. The art and philosophy of Greece were fully equal to the task of imperial expansion, but not so with Greek political administration or religion. After the city-states of Greece had expanded into empire, their rather parochial gods seemed a little queer. The Greeks were really searching for *one God*, a greater and better God, when the Christianized version of the older Jewish religion came to them.

195:1.8 (2072.1) The Hellenistic Empire, as such, could not endure. Its cultural sway continued on, but it endured only after securing from the West the Roman political genius for empire administration and after obtaining from the East a religion whose one God possessed empire dignity.

195:1.9 (2072.2)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Hellenistic culture had already attained its highest levels; its retrogression had begun; learning was advancing but genius was declining. It was at this very time that the ideas and ideals of Jesus, which were partially embodied in Christianity, became a part of the salvage of Greek culture and learning.

195:1.10 (2072.3) Alexander had charged on the East with the cultural gift of the civilization of Greece; Paul assaulted the West with the Christian version of the gospel of Jesus. And wherever the Greek culture prevailed throughout the West, there Hellenized Christianity took root.

195:1.11 (2072.4) The Eastern version of the message of Jesus, notwithstanding that it remained more true to his teachings, continued to follow the uncompromising attitude of Abner. It never progressed as did the Hellenized version and was eventually lost in the Islamic movement.

2. THE ROMAN INFLUENCE

195:2.1 (2072.5) The Romans bodily took over Greek culture, putting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e place of government by lot. And presently this change favored Christianity in that Rome brought into the whole Western world a new tolerance for strange languages, peoples, and even religions.

195:2.2 (2072.6) Much of the early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Rome was due solely to their unfortunate use of the term “kingdom” in their preaching. The Romans were tolerant of any and

에 대해 관대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쟁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체로 오해 때문에 생긴 이런 초기 박해가 끝나게 되자, 종교의 포교{布教} 활동무대가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 경영에 흥미를 가졌으며, 예술이나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상스러운 만큼 관대했다.

동양의 법은 엄격하고 독단적이었으며;**그리스**의 법은 유동적이고 예술적이었으며;**로마**의 법은 위엄 있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로마**의 교육은 전대미문의 무조건 충성을 가르쳤다. 초기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헌신되고 숭고하게 성별된 개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에 대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그 이름에 어울릴만한 종교는 갖지 못했다. 그들을 가르친 **그리스** 선생들이 그들을 설득해서 **바울**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으므로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비길 데 없는 성실성, 헌신, 및 충실한 자기 통제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기에 이상적인 토양이었다.

이 **그리스 로마인**에게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했던 만큼, 제도적 교회에 영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로마인**은, 교회가 국가와 경쟁하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가질 경우에만 교회를 적대시했다. **로마**는 민족 철학이나 고유문화가 없었으므로,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취했고, **그리스도**를 도덕적 철학으로 담대히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됐지만, 도메 값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새 종교를 포용한 그들 개인이 영적 성장을 체험했는지 따져본다면, 도저히 **로마**의 종교라고 할 수 없었다. 많은 개인이 이런 대단한 국교{國敎}의 껍데기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헬라화** 되고 이교화 된, **그리스도교**라는 숨은 진리에 간직되고 감춰진 의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혼 속에 양분이 되게 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금욕주의자, 그리고 “본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금욕주의자**의 완강한 태도는, 적어도 지적 감각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도록 전체 **로마**를 준비시켰을 뿐이다. **로마인**은 타고난 훈련된 법률가였으며; 심지어 자연 법칙도 경외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알아봤다. **키케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었던 한 민족이, **바울**의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다.

그리하여 **로마화** 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양쪽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종교를 철학화 시켰으며, 그 관념을 조정하고 그 이상을 체계화시켰으며, 기존의 생활 풍조에 종교 관습을 적응시키도록 했다. 이런 모든 일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됨으로써 막대한

all religions but very resentful of anything that savored of political rivalry. And so, when these early persecutions, due so largely to misunderstanding, died out, the field for religious propaganda was wide open. The Roman was interested in political administration; he cared little for either art or religion, but he was unusually tolerant of both.

195:2.3 (2072.7) Oriental law was stern and arbitrary; Greek law was fluid and artistic; Roman law was dignified and respect-breeding. Roman education bred an unheard-of and stolid loyalty. The early Romans were politically devoted and sublimely consecrated individuals. They were honest, zealous, and dedicated to their ideals, but without a religion worthy of the name. Small wonder that their Greek teachers were able to persuade them to accept Paul's Christianity.

195:2.4 (2072.8) And these Romans were a great people. They could govern the Occident because they did govern themselves. Such unparalleled honesty, devotion, and stalwart self-control was ideal soil for the reception and growth of Christianity.

195:2.5 (2072.9) It was easy for these Greco-Romans to become just as spiritually devoted to an institutional church as they were politically devoted to the state. The Romans fought the church only when they feared it as a competitor of the state. Rome, having little national philosophy or native culture, took over Greek culture for its own and boldly adopted Christ as its moral philosophy. Christianity became the moral culture of Rome but hardly its religion in the sense of being the individual experience in spiritual growth of those who embraced the new religion in such a wholesale manner. True, indeed, many individuals did penetrate beneath the surface of all this state religion and found for the nourishment of their souls the real values of the hidden meanings held within the latent truths of Hellenized and paganized Christianity.

195:2.6 (2073.1) The Stoic and his sturdy appeal to “nature and conscience” had only the better prepared all Rome to receive Christ, at least in an intellectual sense. The Roman was by nature and training a lawyer; he revered even the laws of nature. And now, in Christianity, he discerned in the laws of nature the laws of God. A people that could produce Cicero and Vergil were ripe for Paul's Hellenized Christianity.

195:2.7 (2073.2) And so did these Romanized Greeks force both Jews and Christians to philosophize their religion, to co-ordinate its ideas and systematize its ideals, to adapt religious practices to the existing current of life. And all this was enormously helped by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into Greek and by the later recording of

도움을 받았다.

유대인 및 다른 여러 민족과는 달리, **그리스인**은 영원한 생명, 즉 죽음 이후의 생존과 비슷한 어떤 것을 불확실하나마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으므로, **그리스도교**가 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의 문화적 승리와 **로마**의 정치적 승리를 상속받은 자들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켰고, 유일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서방** 세계를 준비시켰다. 이 **하나님**을 **유대교**가 제시했지만, **로마**화 된 이 **그리스인**은 **유대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로**가 그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개념을 그들에게 드러냈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3. 로마 제국의 지배

로마의 정치적 규율이 정립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퍼져 나간 후에, **그리스도교인**은 위대한 종교 개념인 유일한 **하나님**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화된 **로마인**은 위대한 제국은 가졌지만, 제국 숭배와 영적 통합에 합당한 종교 개념으로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도교인**은 제국을 받아들였고; 그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수용했다. **로마인**은 통일된 정치적 규율을; **그리스인**은 통일된 문화와 학문을; **그리스도교인**은 통일된 종교적 사고와 관습을 제공했다.

로마는 제국을 보편화함으로써 전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종족과 민족들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다.

활기차게 가르치는 **금욕주의자**와, 구원을 약속한다는 신비주의 종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환영받았다. 그들의 언어에 “이타심(利他心)”이라는 단어가 없는, 영적으로 굶주린 민족에게, **그리스도교**는 상쾌함을 주는 위로와 자유함을 주는 능력을 갖고 다가왔다.

그리스도교에 가장 큰 능력을 부여한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생애를 사는 방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격렬한 박해로 점철된 초기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들의 태도였다.

어린이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아이를 원치 않을 때, 그리고 특히 여자 아기를 원치 않을 때 내버려서 죽게 하는 널리 퍼진 관습을 곧 종식시켰다.

그리스도교 경배의 초기 방식은 주로 **유대인**

the New Testament in the Greek tongue.

195:2.8 (2073.3) The Greeks, in contrast with the Jews and many other peoples, had long provisionally believed in immortality, some sort of survival after death, and since this was the very heart of Jesus' teaching, it was certain that Christianity would make a strong appeal to them.

195:2.9 (2073.4) A succession of Greek-cultural and Roman-political victories had consolidated the Mediterranean lands into one empire, with one language and one culture, and had made the Western world ready for one God. Judaism provided this God, but Judaism was not acceptable as a religion to these Romanized Greeks. Philo helped some to mitigate their objections, but Christianity revealed to them an even better concept of one God, and they embraced it readily.

3. UNDER THE ROMAN EMPIRE

195:3.1 (2073.5) After the consolidation of Roman political rule and after the dissemination of Christianity, the Christians found themselves with one God, a great religious concept, but without empire. The Greco-Romans found themselves with a great empire but without a God to serve as the suitable religious concept for empire worship and spiritual unification. The Christians accepted the empire; the empire adopted Christianity. The Roman provided a unity of political rule; the Greek, a unity of culture and learning; Christianity, a unity of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195:3.2 (2073.6) Rome overcame the tradition of nationalism by imperial universalism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made it possible for different races and nations at least nominally to accept one religion.

195:3.3 (2073.7) Christianity came into favor in Rome at a time when there was great contention between the vigorous teachings of the Stoics and the salvation promises of the mystery cults. Christianity came with refreshing comfort and liberating power to a spiritually hungry people whose language had no word for “unselfishness.”

195:3.4 (2073.8) That which gave greatest power to Christianity was the way its believers lived lives of service and even the way they died for their faith during the earlier times of drastic persecution.

195:3.5 (2073.9) The teaching regarding Christ's love for children soon put an end to the widespread practice of exposing children to death when they were not wanted, particularly girl babies.

195:3.6 (2074.1) The early plan of Christian worship was largely taken over from the Jewish

회당에서 이어받았고, **미트라** 제례식에 따라서 변경됐으며;나중에는 이교적 화려함이 더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중심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 중에서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으로 구성됐다.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전체 세계 역사에서, 훌륭한 종교가 **서방** 세계에서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1세기는, **그리스도교**가 고뇌와 타협을 통해서 뿌리내리고 급속히 퍼져나가기 위해 자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 **그리스도교**는 제국을 받아들였고;제국은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채택했다. 새 종교가 퍼져나가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였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며;여행이 보편화됐고 사상이 자유로웠다.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자극이 **로마**에 너무 늦게 임했으므로, 이미 시작된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으며, 이미 확립되어 확장되고 있던 종족의 퇴보를 보상할 수 없었다. 이 새 종교는 제국화된 **로마**를 위한 문화적 필수품에 불과했으며, 더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의 직무에 개인의 참여가 부족함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들로부터, 즉 과도한 간섭주의, 과도한 세금과 악랄한 징수 악폐, 금{金}을 고갈시키는 **레반트**족과의 불균형적인 거래, 광기{狂氣}에 가까운 오락, **로마**의 규격화, 여성의 지위 하락, 노예제도와 혈통의 퇴폐, 육체의 전염병, 그리고 영적 불모지 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제도화된 국교{國敎}로부터,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거대한 제국을 구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초기의 학파{學派}들은 **예수**의 교훈 대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갔다. **판테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친 후에 **나다니엘**을 따라가서,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수**의 이상 가운데 일부가 희생된 반면, 공평하게 말하자면, 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리스_로마** 세계의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리스도교인**이 됐음을 기록해야 한다.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도 **그리스도교**가 생존을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제국이 오래 유지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의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는 대신 천국 복음이 그렇게 됐다면 **로마**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종종 추측해보곤 한다.

synagogue, modified by the Mithraic ritual; later on, much pagan pageantry was added. The backbone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consisted of Christianized Greek proselytes to Judaism.

195:3.7 (2074.2) The second century after Christ was the best time in all the world's history for a good religion to make progress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first century Christianity had prepared itself, by struggle and compromise, to take root and rapidly spread. Christianity adopted the emperor; later, he adopted Christianity. This was a great age for the spread of a new religion. There was religious liberty; travel was universal and thought was untrammelled.

195:3.8 (2074.3) The spiritual impetus of nominally accepting Hellenized Christianity came to Rome too late to prevent the well-started moral decline or to compensate for the already well-established and increasing racial deterioration. This new religion was a cultural necessity for imperial Rome, and it is exceedingly unfortunate that it did not become a means of spiritual salvation in a larger sense.

195:3.9 (2074.4) Even a good religion could not save a great empire from the sure results of lack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government, from overmuch paternalism, overtaxation and gross collection abuses, unbalanced trade with the Levant which drained away the gold, amusement madness, Roman standardization, the degradation of woman, slavery and race decadence, physical plagues, and a state church which became institutionalized nearly to the point of spiritual barrenness.

195:3.10 (2074.5) Conditions, however, were not so bad at Alexandria. The early schools continued to hold much of Jesus' teachings free from compromise. Pantaenus taught Clement and then went on to follow Nathaniel in proclaiming Christ in India. While some of the ideals of Jesus were sacrificed in the building of Christianity, it should in all fairness be recorded that, by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practically all the great minds of the Greco-Roman world had become Christian. The triumph was approaching completion.

195:3.11 (2074.6) And this Roman Empire lasted sufficiently long to insure the survival of Christianity even after the empire collapsed. But we have often conjectured what would have happened in Rome and in the world if it had been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had been accepted in the place of Greek Christianity.

4. 유럽의 암흑기

교회는, 사회에 부속되고 정치와 제휴한 상태

4. THE EUROPEAN DARK AGES

195:4.1 (2074.7) The church, being an adjunct to

에서, 소위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지적 및 영적 퇴보의 길을 걷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 기간에, 종교는 점점 더 수도원 중심이 되고, 금욕주의화되고, 합법화 됐다.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동면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내, 이런 무기력하고 세속화된 종교에 발맞춰서, 신비주의의 흐름, 즉 비현실성에 가깝고 철학적으로는 범신론과 비슷한 환상적인 영적 체험의 흐름이 계속 있었다.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세기들이 지나가는 동안, 사실상 종교는 다시 골동품처럼 돼갔다. 개인은, 교회의 짓누르는 권위, 전통, 및 명령 앞에서 거의 길을 잃어버렸다. 신성한 재판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호소하지만 하면, **하나님**들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자{聖者}” 무리가 창작됨으로써 새로운 영적 위협이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충분히 사회화 되고 이교화{異敎化} 됐으므로, 다가오는 암흑기를 막아내기에는 무기력했던 반면, 이런 오랜 기간의 도덕적 무지와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교적 잘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서방** 문명이 긴 밤을 지내는 동안 존속했고, 문예부흥이 도래할 때에도 여전히 도덕적 영향력으로 세계에 작용하고 있었다. 암흑기를 뒤따라서 일어난 **그리스도교**의 재건은, **그리스도교** 교훈에 속하는 수많은 교파, 즉 인간 인격의 특별한 지적, 감정적, 및 영적 유형에 적합한 믿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그리스도교인** 집단 또는 종교적 부류들 가운데 다수는, 본 문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도 여전히 존속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관한 어떤 종교로 무의식중에 변형됨으로써 발생되는 역사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헬라**화, 이교화, 세속화, 제도화, 지적 퇴보, 영적 타락, 도덕적 동면{冬眠}, 소멸될 위기, 그 후의 회복, 분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비교적 회복되는 경험을 겪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런 계보는, 타고난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이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교**는, 현재 개화된 **서양** 민족들의 세계에 현존하며, 우위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 벌였던 전쟁의 특징인 그런 중대한 위기보다 훨씬 더 불길한,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과학적 정신과 유물론적 성향의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세속 종교와 영적 종교 사이의 이 거대한 투쟁에서, **예수**의 종교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다.

society and the ally of politics, was doomed to share in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cline of the so-called European “dark ages.” During this time, religion became more and more monasticized, asceticized, and legalized. In a spiritual sense, Christianity was hibernating. Throughout this period there existed, alongside this slumbering and secularized religion, a continuous stream of mysticism, a fantastic spiritual experience bordering on unreality and philosophically akin to pantheism.

195:4.2 (2074.8) During these dark and despairing centuries, religion became virtually secondhanded again. The individual was almost lost before the overshadowing authority, tradition, and dictation of the church. A new spiritual menace arose in the creation of a galaxy of “saints” who were assumed to have special influence at the divine courts, and who, therefore, if effectively appealed to, would be able to intercede in man’s behalf before the Gods.

195:4.3 (2075.1) But Christianity was sufficiently socialized and paganized that, while it was impotent to stay the oncoming dark ages, it was the better prepared to survive this long period of moral darkness and spiritual stagnation. And it did persist on through the long night of Western civilization and was still functioning as a moral influence in the world when the renaissance dawned. The rehabilitation of Christianity, following the passing of the dark ages, resulted in bringing into existence numerous sects of the Christian teachings, beliefs suited to special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types of human personality. And many of these special Christian groups, or religious families, still persist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is presentation.

195:4.4 (2075.2) Christianity exhibits a history of having originated out of the unintended transformation of the religion of Jesus into a religion about Jesus. It further presents the history of having experienced Hellenization, paganization, secular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ntellectual deterioration, spiritual decadence, moral hibernation, threatened extinction, later rejuvenation, fragmentation, and more recent relative rehabilitation. Such a pedigree is indicative of inherent vitality and the possession of vast recuperative resources. And this same Christianity is now present in the civilized world of Occidental peoples and stands face to face with a struggle for existence which is even more ominous than those eventful crises which have characterized its past battles for dominance.

195:4.5 (2075.3) Religion is now confronted by the challenge of a new age of scientific minds and materialistic tendencies. In this gigantic struggle between the secular and the spiritual, the religion of Jesus will eventually triumph.

5. 현대의 문제점

20세기는, **그리스도교** 및 다른 모든 종교가 풀어야 할 새 문제를 야기했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물질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사람이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먼저 하늘의 실체를 찾아야 하는” 임무가 더 절박해진다.

진리는, 분할되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너무 심하게 분석될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 물질 과학이라는 사실로서, 또는 기술적으로 중재하는 영감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활기찬 영적 실체로서 통째로 받아들여질 때, 진리 탐구자들을 바르게 가르친다.

종교는, 사람에게 그의 신성하고 영원한 운명을 계시{啓示}하는 것이다.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이며, 다음과 같이, 사람이 가진 다른 높은 형태의 사고로부터 끊임없이 구별되어야 한다:

1. 물질 실체인 사물에 대한 사람의 논리적 태도.

2. 추함과 대비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심미적 감상.

3. 사회적 책무와 정치적 의무에 대한 사람의 윤리적 인식.

4. 인간의 도덕성을 느끼는, 사람의 감각조차, 그 자체만으로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우주에서 신앙, 신뢰, 및 확신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도록 고안돼 있으며; 경배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종교는, 정신이 발견하는 상대적 가치와는 현저히 다른 최고의 가치를 흔히 발견하도록 한다. 그런 초인적 통찰력은 참된 종교 체험을 통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인력{引力} 작용 없이는 태양계가 유지될 수 없듯이, 영적 실체에 기초된 도덕성 없이는 사회 체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육체 속에서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혼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잠복된 모험심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저속하고 야비한 모험심을 제멋대로 탐닉하도록 빠뜨리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내하라! 너희의 에너지를 이용하되, 너희의 열정을 제어하며; 점진적으로 모험하고 감동적으로 발견하는 끝없는 생애가 장엄하게 전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하라.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예수**께서 어린아이까지 사랑했다는 것과, 인간 인격의 위대한 가치를 영원히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잊지 마라.

5. THE MODERN PROBLEM

195:5.1 (2075.4) The twentieth century has brought new problems for Christianity and all other religions to solve. The higher a civilization climbs, the more necessitous becomes the duty to “seek first the realities of heaven” in all of man’s efforts to stabilize society and facilitate the solution of its material problems.

195:5.2 (2075.5) Truth often becomes confusing and even misleading when it is dismembered, segregated, isolated, and too much analyzed. Living truth teaches the truth seeker aright only when it is embraced in wholeness and as a living spiritual reality, not as a fact of material science or an inspiration of intervening art.

195:5.3 (2075.6) Religion is the revelation to man of his divine and eternal destiny. Religion is a purely personal and spiritual experience and must forever be distinguished from man’s other high forms of thought, such as:

195:5.4 (2075.7) 1. Man’s logical attitude toward the things of material reality.

195:5.5 (2075.8) 2. Man’s aesthetic appreciation of beauty contrasted with ugliness.

195:5.6 (2075.9) 3. Man’s ethical recognition of social obligations and political duty.

195:5.7 (2075.10) 4. Even man’s sense of human morality is not, in and of itself, religious.

195:5.8 (2075.11) Religion is designed to find those values in the universe which call forth faith, trust, and assurance; religion culminates in worship. Religion discovers for the soul those supreme values which are in contrast with the relative values discovered by the mind. Such superhuman insight can be had only through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195:5.9 (2075.12) A lasting social system without a morality predicated on spiritual realities can no more be maintained than could the solar system without gravity.

195:5.10 (2076.1) Do not try to satisfy the curiosity or gratify all the latent adventure surging within the soul in one short life in the flesh. Be patient! be not tempted to indulge in a lawless plunge into cheap and sordid adventure. Harness your energies and bridle your passions; be calm while you await the majestic unfolding of an endless career of progressive adventure and thrilling discovery.

195:5.11 (2076.2) In confusion over man’s origin, do not lose sight of his eternal destiny. Forget not that Jesus loved even little children, and that he forever made clear the great worth of human personality.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악한 검은 조각들은, 궁극적 선이라는 하얀 바탕에 대비하여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악으로 점철된 검은 바탕에 대비하여 초라하게 나타나는 선한 흰 조각들만 바라보게 되지 않도록 해라.

발표하고 선포할 선한 진리가 그토록 많은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세상의 악이 확실한 사실로서 출현한다는 오직 그 이유로 인해, 악에 그토록 골몰해야 하는가? 진리의 아름다운 영적 가치가, 악으로 인한 현상보다 더 만족스럽고 향상시킨다.

현대 과학이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종교에서 체험이라는 방법을 옹호하고 실행했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진리 추구, 충실한 의무 이행, 및 신성한 선함을 찬미함으로써, 이런 혼의 통찰력에 다가간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치 기준 중에서 사랑이, 참된 통찰력에 도달되도록 인도하는 진실한 안내자다.

6. 유물론

과학자들이 본의 아니게 인류를 유물론적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시대의 도덕 은행에 아무 생각 없이 채권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 인간 체험 은행은 방대한 영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그 은행에 제시된 청구권만 수용할 수 있다. 오직 경솔한 사람만이, 인간 종족의 영적 자산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유물론적_세속적 공포가 끝나게 될 때,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 나라라는 영적{靈的} 은행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출{引出}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 소망, 및 도덕적 안전을 지불할 것이다.

유물론과 **예수**의 교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주님**의 교훈이 완전하게 승리할 것임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참된 종교는 과학과 어떤 논쟁에도 휘말릴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단순히 과학에 개의치 않을 뿐이고, 서로 공감하는 관계이지만, **과학** 자에게는 극도로 민감하다.

지식만 추구하는 것은, 그에 따른 지혜로운 해석 없이, 그리고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통찰력 없이는, 결국 염세주의와 인간적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 알파한 지식은 정말로 혼란을 야기한다.

본 문서가 기록될 때, 최악의 유물론 시대는 끝났으며; 보다 증진된 이해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학 세계에 대해 높은 수준에 있는 지성인들은, 자신의 철학에서 더 이상 완전한 유물론을 고집하지 않지만, 일반인은 이전{以前}의 교훈으로

195:5.12 (2076.3) As you view the world, remember that the black patches of evil which you see are shown against a white background of ultimate good. You do not view merely white patches of good which show up miserably against a black background of evil.

195:5.13 (2076.4) When there is so much good truth to publish and proclaim, why should men dwell so much upon the evil in the world just because it appears to be a fact? The beauties of the spiritual values of truth are more pleasurable and uplifting than is the phenomenon of evil.

195:5.14 (2076.5) In religion, Jesus advocated and followed the method of experience, even as modern science pursues the technique of experiment. We find God through the leadings of spiritual insight, but we approach this insight of the soul through the love of the beautiful, the pursuit of truth, loyalty to duty, and the worship of divine goodness. But of all these values, love is the true guide to real insight.

6. MATERIALISM

195:6.1 (2076.6) Scientists have unintentionally precipitated mankind into a materialistic panic; they have started an unthinking run on the moral bank of the ages, but this bank of human experience has vast spiritual resources; it can stand the demands being made upon it. Only unthinking men become panicky about the spiritual assets of the human race. When the materialistic-secular panic is over, the religion of Jesus will not be found bankrupt. The spiritual bank of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paying out faith, hope, and moral security to all who draw upon it "in His name."

195:6.2 (2076.7) No matter what the apparent conflict between materialism and the teachings of Jesus may be, you can rest assured that, in the ages to come, the teachings of the Master will fully triumph. In reality, true religion cannot become involved in any controversy with science; it is in no way concerned with material things. Religion is simply indifferent to, but sympathetic with, science, while it supremely concerns itself with the *scientist*.

195:6.3 (2076.8) The pursuit of mere knowledge, without the attendant interpretation of wisdom and the spiritual insight of religious experience, eventually leads to pessimism and human despair. A little knowledge is truly disconcerting.

195:6.4 (2076.9) At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worst of the materialistic age is over; the day of a better understanding is already beginning to dawn. The higher minds of the scientific world are no longer wholly materialistic in their philosophy, but the rank

인해 여전히 그 방향에 동조한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사실주의 시대는, 이 세상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대 과학은, 참 종교를--곧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속에 적용된 **예수**의 교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학이 이룩한 업적은, 인생을 그릇되게 풀이한 유치한 환상을 무너뜨렸을 뿐이다.

땅에서 사는 사람의 생애를 고려할 때, 과학은 양적 체험이고,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을; 종교는, 근원, 가치, 및 목표를 취급한다. 물리적 현상을 해석할 때 원인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궁극적인 것을 모르겠다는 고백이며, 결국 최초의 위대한 근원으로--곧 **낙원의 만유의 아버지**께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과학자를 인도할 뿐이다.

기적을 추구하는 시대로부터 기계 문명 시대로 맹렬하게 바뀐 것이, 사람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 기계론이라는 잘못된 원리가 교묘하고 빈틈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 기계론적 주장과 모순된다. 유물론자의 정신이 숙명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음이, 우주가 원인불명이고 아무 목적 없는 에너지 현상일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언제든지 증명한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기계론적 자연주의와, 보통사람의 경솔한 세속주의, 양쪽 다 오직 **사물**에만 관심을 두며; 그들에게는 참된 가치, 도덕적 구속력, 그리고 영적 본성에 대한 만족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 소망, 및 영원한 확신이 결여됐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영적 명상과 종교적 헌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물론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사람을 타락시키며, 삭막하고 기계적인 우주에 적용되는 수학 공식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산수 기호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방대한 우주 수학은 **정통한 수학자** 없이 어디서 기원되는가? 질량 보존에 대해 과학이 상세히 설명할지 모르지만, 종교는 사람의 혼이 보존되는 것을 입증한다--곧 종교는 사람이 영적 실체와 영원한 가치를 체험하는 데 관심을 둔다.

오늘날 유물론적 사회학자는, 공동체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기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취급해 버린다. 1,900년 전에, 학식 없는 **갈릴리인**들은, 사람의 내적 체험에 영적으로 기여하도록 일생을 바친 **예수**를 조사했고, 그 후에는 밖으로 퍼져 나갔으며,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버렸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중세**{中世}의 나팔소리로 현대인을 영적 전쟁터로 불려내려고 시도하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최신의 새로운 표어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만병통치약도, 영적 진보를 대신할 수 없다. 잘못된 종교는 실체를 기피하려

and file of the people still lean in that direction as a result of former teachings. But this age of physical realism is only a passing episode in man's life on earth. Modern science has left true religion — the teachings of Jesus as translated in the lives of his believers — untouched. All science has done is to destroy the childlike illusions of the misinterpretations of life.

195:6.5 (2077.1) Science is a quantitative experience, religion a qualitative experience, as regards man's life on earth. Science deals with phenomena; religion, with origins, values, and goals. To assign causes as an explanation of physical phenomena is to confess ignorance of ultimates and in the end only leads the scientist straight back to the first great cause — the Universal Father of Paradise.

195:6.6 (2077.2) The violent swing from an age of miracles to an age of machines has proved altogether upsetting to man. The cleverness and dexterity of the false philosophies of mechanism belie their very mechanistic contentions. The fatalistic agility of the mind of a materialist forever disproves his assertions that the universe is a blind and purposeless energy phenomenon.

195:6.7 (2077.3) The mechanistic naturalism of some supposedly educated men and the thoughtless secularism of the man in the street are both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ings*; they are barren of all real values, sanctions, and satisfactions of a spiritual nature, as well as being devoid of faith, hope, and eternal assurances. One of the great troubles with modern life is that man thinks he is too busy to find time for spiritual meditation and religious devotion.

195:6.8 (2077.4) Materialism reduces man to a soulless automaton and constitutes him merely an arithmetical symbol finding a helpless place in the mathematical formula of an unromantic and mechanistic universe. But whence comes all this vast universe of mathematics without a Master Mathematician? Science may expatiate on the conservation of matter, but religion validates the conservation of men's souls — it concerns their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ies and eternal values.

195:6.9 (2077.5) The materialistic sociologist of today surveys a community, makes a report thereon, and leaves the people as he found them. Nineteen hundred years ago, unlearned Galileans surveyed Jesus giving his life as a spiritual contribution to man's inner experience and then went out and turned the whole Roman Empire upside down.

195:6.10 (2077.6) But religious leaders are making a great mistake when they try to call modern man to spiritual battle with the trumpet blasts of the Middle Ages. Religion must provide itself with new and up-to-date slogans. Neither democracy nor any other political panacea will take the place of

고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영적 진보의 영원한 실체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으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필사적 사람을 이끌었다.

정신이 물질에서 “발생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우주가 단지 기계적 현상에 불과하고, 정신이 물질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측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 내재돼있지 않다. 기계는, 진리를 알기는커녕, 아는 능력도 없고, 의를 갈망하거나, 선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 도 할 수 없다.

과학은 물리적인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진리를 식별하는 과학자의 정신은 당장에 물질을 초월한다. 물질은, 진리를 알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으며, 영적 실체를 즐길 수도 없다. 영적 계몽에 기초를 두고 인간 체험에 뿌리를 둔 도덕적 확신은, 수학에서 뻔뻔하는 것이 물리적 관측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확실하지만, 한층 높은 다른 수준에서 그렇다.

사람이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다면, 물질 우주에 대해 거의 확일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인격은커녕, 개성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온갖 우주의 중심에 **낙원**의 절대적 기계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무조건적 의지작용이 있는 곳에서는, 결정법칙이 시공우주만의 배타적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히 확인한다. 유물론이 있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기계론이 있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 결정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신과 영이 결합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유한한 물질 우주는 결국 확일적이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시공우주 정신의 작용이, 물질세계 속에도 자발성을 계속 주입한다.

현존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해방 또는 독창력은, 영적 영향과 시공우주 정신의 통제 정도에; 다시 말해서, 인간 체험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일단 길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발견하셨다는 결정적 증거다.

선함, 아름다움, 및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에 해방과 균일성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발견하려는 자는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사물은 실제이고 명백히 균일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사물**로 알려질 수 없었다.

spiritual progress. False religions may represent an evasion of reality, but Jesus in his gospel introduced mortal man to the very entrance upon an eternal reality of spiritual progression.

195:6.11 (2077.7) To say that mind “emerged” from matter explains nothing. If the universe were merely a mechanism and mind were unapart from matter, we would never have two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any observed phenomenon. The concept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not inherent in either physics or chemistry. A machine cannot *know*, much less know truth, hunger for righteousness, and cherish goodness.

195:6.12 (2077.8) Science may be physical, but the mind of the truth-discerning scientist is at once supermaterial. Matter knows not truth, neither can it love mercy nor delight in spiritual realities. Moral convictions based on spiritual enlightenment and rooted in human experience are just as real and certain as mathematical deductions based on physical observations, but on another and higher level.

195:6.13 (2077.9) If men were only machines, they would react more or less uniformly to a material universe. Individuality, much less personality, would be nonexistent.

195:6.14 (2077.10) The fact of the absolute mechanism of Paradis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n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voliti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makes forever certain that determiners are not the exclusive law of the cosmos. Materialism is there, but it is not exclusive; mechanism is there, but it is not unqualified; determinism is there, but it is not alone.

195:6.15 (2078.1) The finite universe of matter would eventually become uniform and deterministic but for the combined presence of mind and spirit. The influence of the cosmic mind constantly injects spontaneity into even the material worlds.

195:6.16 (2078.2) Freedom or initiative in any realm of existenc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spiritual influence and cosmic-mind control; that is, in human experience, the degree of the actuality of doing “the Father’s will.” And so, when you once start out to find God, that is the conclusive proof that God has already found you.

195:6.17 (2078.3) The sincere pursuit of goodness, beauty, and truth leads to God. And every scientific discovery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both freedom and uniformity in the universe. The discoverer was free to make the discovery. The thing discovered is real and apparently uniform, or else it could not have become known as a *thing*.

7. 유물론의 취약점

7. THE VULNERABILITY OF MATERIALISM

기계론적 우주론 같은 그런 취약한 이론들이, 참 종교의 개인 체험이라는 방대한 영적 자원을 자신에게서 빼앗도록, 물질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실은 실제적인 영적 신앙과 결코 대립되지 않으나, 이론은 그럴 수 있다. 발전된 과학은, 종교적 신앙--곧 영적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미신을 타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낫다.

종교가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행하는 것: 즉 인생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그의 인격을 증진시키는 것을, 과학은 그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행해야 한다. 참된 과학은 참 종교와 지속적으로 대립할 수 없다. “과학적인 방법”은, 물질적 모험과 물리적 성취를 재는 지적{知的} 척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지적이기 때문에, 영적 실체와 종교 체험을 평가할 경우에는 전혀 쓸모없다.

현대 기계론자의 모순은 이렇다: 우주가 다만 물질적이고 사람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기계인 것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런 기계로서의 사람은 그런 물질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에서 유물론적 낙담과 절망이 발생한 것은, 과학자에게 영이 내주하는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과학자의 바로 그 초물질적 통찰력이, 물질적 우주에 대한 잘못된 고도로 모순되는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낙원** 가치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 속에 숨겨 있다. 그러나 이런 영적 가치를 감지하고 분간하려면,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에게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

영적 진보의 실체와 가치는, “심리적 투사{投射}”가 아니다--곧 물질 정신의 단순히 미화된 백일몽이 아니다. 그런 실체와 가치는, 내주하는 **조울사**, 즉 사람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영적 예측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다가 어렵 뜻이 발견한 “상대성”을 갖고 놀아본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성 및 무한성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자아**를 표현할 필요성에 관하여 너희가 온갖 간청을 드릴 때, **조울사** 표현, 즉 너희의 실제적이고 더 나은 자아를 표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우주가 물질적인 뿐이라면, 물질적인 사람은, 오로지 물질적인 그런 실체에 대한 기계론적 특성 개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의 바로 이런 **기계론적 개념** 자체가 비물질적 정신 현상이며, 모든 정신은, 외견상 아무리 철저히 물질적으로 제약받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듯이 보여도, 비물질적으로 기원된다.

195:7.1 (2078.4) How foolish it is for material-minded man to allow such vulnerable theories as those of a mechanistic universe to deprive him of the vast spiritual resources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true religion. Facts never quarrel with real spiritual faith; theories may. Better that science should be devoted to the destruction of superstition rather than attempting the overthrow of religious faith — human belief in spiritual realities and divine values.

195:7.2 (2078.5) Science should do for man materially what religion does for him spiritually: extend the horizon of life and enlarge his personality. True science can have no lasting quarrel with true religion. The “scientific method” is merely an intellectual yardstick wherewith to measure material adventures and physical achievements. But being material and wholly intellectual, it is utterly useless in the evaluation of spiritual realities and religious experiences.

195:7.3 (2078.6) The inconsistency of the modern mechanist is: If this were merely a material universe and man only a machine, such a man would be wholly unable to recognize himself as such a machine, and likewise would such a machine-man be wholly unconscious of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such a material universe. The materialistic dismay and despair of a mechanistic science has failed to recognize the fact of the spirit-indwelt mind of the scientist whose very supermaterial insight formulates these mistaken and self-contradictory concepts of a materialistic universe.

195:7.4 (2078.7) Paradise values of eternity and infini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concealed within the facts of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But it requires the eye of faith in a spirit-born mortal to detect and discern these spiritual values.

195:7.5 (2078.8) The realities and values of spiritual progress are not a “psychologic projection” — a mere glorified daydream of the material mind. Such things are the spiritual forecasts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spirit of God living in the mind of man. And let not your dabbings with the faintly glimpsed findings of “relativity” disturb your concepts of the eternity and infinity of God. And in all your solicitation concerning the necessity for self-expression do not make the mistake of failing to provide for Adjuster-expression, the manifestation of your real and better self.

195:7.6 (2079.1) If this were only a material universe, material man would never be able to arrive at the concept of the mechanistic character of such an exclusively material existence. This very mechanistic concept of the universe is in itself a nonmaterial phenomenon of mind, and all mind is of nonmaterial origin, no matter how thoroughly it may appear to be materially conditioned and

어느 정도 진화된 필사적 사람의 정신 작용은, 일관성이나 지혜를 지나치게 부여받지 않는다. 사람의 자만심은 종종 자기 이성{理性}을 잃어버리게 하며, 자신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가장 비판적인 유물론자의 바로 그 비판주의는, 그 자체로, 비판주의자가 속한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낙관주의와 비판주의, 이 두 가지 모두, *사실*뿐 아니라 *가치*를 의식하는 정신 속에서 반응하는 개념이다. 유물론자들이 간주하는 것처럼 우주가 정말로 그런 상태였다면, 인간 기계로서의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도무지 의식{意識}하여 알아보지 못해야 한다. 영으로 태어난 자의 정신이 *가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는 사실과, 우주 운행이 기계론적 현상임을, 사람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본성이나 가치를 자각할 수 없다.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이 과학적일 수 없는 이유는, 과학은 오직 물질과 사실만 인식하고 취급하기 때문이다. 철학은 필연적으로 초과학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연에 속한 물질적 실상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자연의 물질적 수준을 초월하는 현상이며, 정신의 통제 속성과 영의 창조적 특성을 자연 속에 나타낸다.

기계론자가 되려는 사람의 진지한 노력은, 그 사람이 지적 및 도덕적 자살을 범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비극적 현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주가 오직 물질적이고 사람이 기계에 불과했다면, 우주가 기계작용이라고 가정{假定}하도록 과학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과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계는 스스로를 측정, 구분, 또는 평가할 수 없다. 기계 상태를 초월하는 어떤 실체만이 그런 과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우주 실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평가*를 하는 통찰력을 인식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주 밖에 있어야 하며, 우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기계에 불과한 존재라고 믿게 되거나 *안다고* 주장하겠는가?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체험은, 단순한 기계적 속성이 결코 아니다. 자아를 *의식*하고 기계론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기계론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이다.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자아를 의식하는 기계론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도덕을 아는 인격자여야 한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유물론이라는 바로 그 주장이, 그런 견해를 주장하게 하는 정신의 초 물질적 의식을 암시한

mechanistically controlled.

195:7.7 (2079.2) The partially evolved mental mechanism of mortal man is not overendowed with consistency and wisdom. Man's conceit often outruns his reason and eludes his logic.

195:7.8 (2079.3) The very pessimism of the most pessimistic materialist is, in and of itself, sufficient proof that the universe of the pessimist is not wholly material. Both optimism and pessimism are concept reactions in a mind conscious of *values* as well as of *facts*. If the universe were truly what the materialist regards it to be, man as a human machine would then be devoid of all conscious recognition of that very *fact*.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the concept of *values* within the spirit-born mind, the fact of universe materialism and the mechanistic phenomena of universe operation would be wholly unrecognized by man. One machine cannot be conscious of the nature or value of another machine.

195:7.9 (2079.4) A mechanistic philosophy of life and the universe cannot be scientific because science recognizes and deals only with materials and facts. Philosophy is inevitably superscientific. Man is a material fact of nature, but his *life* is a phenomenon which transcends the material levels of nature in that it exhibits the control attributes of mind and the creative qualities of spirit.

195:7.10 (2079.5) The sincere effort of man to become a mechanist represents the tragic phenomenon of that man's futile effort to commit intellectual and moral suicide. But he cannot do it.

195:7.11 (2079.6) If the universe were only material and man only a machine, there would be no science to embolden the scientist to postulate this mechanization of the universe. Machines cannot measure, classify, nor evaluate themselves. Such a scientific piece of work could be executed only by some entity of supermachine status.

195:7.12 (2079.7) If universe reality is only one vast machine, then man must be outside of the universe and apart from it in order to recognize such a *fact* and become conscious of the *insight* of such an *evaluation*.

195:7.13 (2079.8) If man is only a machine, by what technique does this man come to *believe* or claim to *know* that he is only a machine? The experience of self-conscious evaluation of one's self is never an attribute of a mere machine. A self-conscious and avowed mechanist is the best possible answer to mechanism. If materialism were a fact, there could be no self-conscious mechanist. It is also true that one must first be a moral person before one can perform immoral acts.

195:7.14 (2079.9) The very claim of materialism implies a supermaterial consciousness of the

다. 기계작용은 나빠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진보를 이룰 수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꾸거나, 포부를 갖거나, 이상화하거나, 진리에 굶주리거나, 의에 목마를 수 없다. 기계는, 다른 기계들을 섬기려는 열정, 그리고 영원히 진보하는 자신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숭고한 과업을 선택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기계는 결코, 지적, 감정적, 심미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영적일 수 없다.

예술은 사람이 기계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영존하는 존재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예술은 필사 모론시아, 즉 물질 존재인 사람과 영적 존재인 사람 사이에 들어있는 분야다. 시적{詩的} 감흥은 물질 실체를 벗어나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고도{高度}의 문명에서는 예술이 과학을 인간답게 만들며, 한편 참 종교가--곧 영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보는 통찰력이-- 예술을 영화{靈化}시킨다. 예술은 실체에 대한 인간의 시_공 평가를 나타낸다. 종교는, 시공우주 가치를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확장하면서 영원히 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세계의 예술은, 영원성이 시간이라는 실체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신성한 원형{原形}들에 대한 영 표준을, 예술이 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만 위협한다. 참된 예술은 인생에서 물질 사물을 효과적으로 조종하며; 종교는 인생에서 물질적 사실을 고상하게 변형시키고, 예술에 대한 영적 평가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자동장치가 자동운동 원리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이 다른 종류의 자동장치 개념도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과학자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무가치하다. 예술가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예술에 대한 어떤 감상도 진짜가 아니다. 도덕가를 제외한다면, 도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보람이 없다. 철학자를 무시한다면, 어떤 철학적 인식도 교훈적이지 못하며, 종교인의 참된 체험 없이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종교인은 바로 이 체험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한다. **자존자**{自尊者}로부터, 즉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운영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온갖 우주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기계론자--곧 인본주의자--는 물질의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영을 추구하는 자와 이상주의자는, 외견상 순전히 물질적인 에너지 흐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감히* 지성과 활력으로 노{櫓}를 저으려 한다.

과학은 정신의 수학을 이용함으로써 존속하며; 음악은 감정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성**에 속하는 더 높고 영원한 가락의 선율과 시_공 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혼의 영적 리듬이다. 종교 체험은 인생에서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무엇이

mind which presumes to assert such dogmas. A mechanism might deteriorate, but it could never progress. Machines do not think, create, dream, aspire, idealize, hunger for truth, or thirst for righteousness. They do not motivate their lives with the passion to serve other machines and to choose as their goal of eternal progression the sublime task of finding God and striving to be like him. Machines are never intellectual, emotional, aesthetic, ethical, moral, or spiritual.

195:7.15 (2079.10) Art proves that man is not mechanistic, but it does not prove that he is spiritually immortal. Art is mortal morontia, the intervening field between man, the material, and man, the spiritual. Poetry is an effort to escape from material realities to spiritual values.

195:7.16 (2080.1) In a high civilization, art humanizes science, while in turn it is spiritualized by true religion — insight into spiritual and eternal values. Art represents the human and time-space evaluation of reality. Religion is the divine embrace of cosmic values and connotes eternal progression in spiritual ascension and expansion. The art of time is dangerous only when it becomes blind to the spirit standards of the divine patterns which eternity reflects as the reality shadows of time. True art is the effective manipulation of the material things of life; religion is the ennobling transformation of the material facts of life, and it never ceases in its spiritual evaluation of art.

195:7.17 (2080.2) How foolish to presume that an automaton could conceive a philosophy of automatism, and how ridiculous that it should presume to form such a concept of other and fellow automatons!

195:7.18 (2080.3) Any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universe is valueless unless it provides due recognition for the *scientist*. No appreciation of art is genuine unless it accords recognition to the *artist*. No evaluation of morals is worth while unless it includes the *moralist*. No recognition of philosophy is edifying if it ignores the *philosopher*, and religion cannot exist without the real experience of the *religionist* who, in and through this very experience, is seeking to find God and to know him. Likewise is the universe of universes without significance apart from the I AM, the infinite God who made it and unceasingly manages it.

195:7.19 (2080.4) Mechanists — humanists — tend to drift with the material currents. Idealists and spiritists *dare* to use their oars with intelligence and vigor in order to modify the apparently purely material course of the energy streams.

195:7.20 (2080.5) Science lives by the mathematics of the mind; music expresses the tempo of the emotions. Religion is the spiritual rhythm of the soul in time-space harmony with the higher and eternal melody measurements of Infinity. Religious

다.

언어에서, 글자는 유물론의 기계작용을 대변하는 반면, 수많은 사고{思考}, 웅대한 개념, 그리고 --사랑과 미움에 대한, 비겁함과 용기에 대한-- 고상한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물질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신이 실행한 것을 묘사하며, 그 실행은 인격의 의지가 주장하는 바의 지시를 받고, 타고난 정황상 자질에 제약을 받는다.

우주는,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과학으로 간주하는, 법칙, 기계작용, 및 확실성과는 다르며, 오히려 우주 현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창조에서 물질계통의 기계론적 국면에 내재된 명확한 사실들을 분류하는, 호기심 많고, 사고하며, 선택적이고, 창조적이며, 연합적이고 분별력 있는 *과학자*에 가깝다. 또한 우주는 예술가의 작품과도 다르며, 오히려 영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애쓰는 가운데 물질적 사물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투쟁적이고, 꿈을 간직하며, 큰 뜻을 품고, 진취적인 *예술가*에 가깝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된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 실체를 감지한다.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물질 존재와 영적 자유 사이에 들어있는 일시적 모론시아 세계의 실존을 실물로 표현한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인이, 영원히 진보하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영적 실체와 신성한 가치의 실존을 증명한다.

8. 세속적 전체주의

그러나 유물론과 기계론이 다소 사라진 후에도, 20세기 세속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혼의 영적 체험을 여전히 손상시킬 것이다.

두 가지 세계적 영향이 현대의 세속주의를 촉진시켰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는, 소위 과학--곧 무신론적 과학--이라는 19세기와 20세기의 편협하고 무신론적인 태도였다. 현대 세속주의의 어머니는, 중세{中世}의 전체주의적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 교회가 거의 완전하게 지배한 **서방** 문명에 대항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달했다.

본 계시가 주어진 시기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생활에서 지배적인 지적 및 철학적 풍조는 단연코 세속적이었다--곧 인본주의적이었다. **서방**의 사고{思考}는 3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세속화 돼왔다. 종교는 점점 더 이름뿐인 세력이 되어, 주로 제례적{祭禮的} 행사만 유지됐다. **서방** 문명에 속한 대

experience is something in human life which is truly supermathematical.

195:7.21 (2080.6) In language, an alphabet represents the mechanism of materialism, while the words expressive of the meaning of a thousand thoughts, grand ideas, and noble ideals — of love and hate, of cowardice and courage — represent the performances of mind within the scope defined by both material and spiritual law, directed by the assertion of the will of personality, and limited by the inherent situational endowment.

195:7.22 (2080.7) The universe is not like the laws, mechanisms, and the uniformities which the scientist discovers, and which he comes to regard as science, but rather like the curious, thinking, choosing, creative, combining, and discriminating *scientist* who thus observes universe phenomena and classifies the mathematical facts inherent in the mechanistic phases of the material side of creation. Neither is the universe like the art of the artist, but rather like the striving, dreaming, aspiring, and advancing *artist* who seeks to transcend the world of material things in an effort to achieve a spiritual goal.

195:7.23 (2080.8) The scientist, not science, perceives the reality of an evolving and advancing universe of energy and matter. The artist, not art,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the transient morontia world intervening between material existence and spiritual liberty. The religionist, not religion, proves the existence of the spirit realities and divine values which are to be encountered in the progress of eternity.

8. SECULAR TOTALITARIANISM

195:8.1 (2081.1) But even after materialism and mechanism have been more or less vanquished, the devastating influence of twentieth-century secularism will still blight the spiritual experience of millions of unsuspecting souls.

195:8.2 (2081.2) Modern secularism has been fostered by two world-wide influences. The father of secularism was the narrow-minded and godless attitude of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so-called science — atheistic science. The mother of modern secularism was the totalitarian medieval Christian church. Secularism had its inception as a rising protest against the almost complete domin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by the institutionalized Christian church.

195:8.3 (2081.3) At the time of this revelation, the prevailing intellectual and philosophical climate of both European and American life is decidedly secular — humanistic. For three hundred years Western thinking has been progressively secularized. Religion has become more and more a nominal influence, largely a ritualistic exercise.

부분의 자칭 **그리스도교인**은, 실제로는 무의식중에 모두 세속주의자가 됐다.

활기를 잃게 하는 전체주의적 교회 권세의 통제로부터, **서방** 사람의 사고와 생활을 해방시키는데는 엄청난 능력, 즉 강대한 영향력이 요구됐다. 세속주의가 교회의 통제력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거꾸로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 새로운 무신론적 유형의 지배권을 형성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군주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계층은, 과학적 유물론과 철학적 세속주의에서 직접 생긴 산물이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교회의 지배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자마자, 그들을 전체주의 국가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노예 신분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노예 삼는 폭정에 팔아넘길 뿐이다.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며, 적어도 초기의 태도가 그랬다. 한때 전체주의적 속박에 저항했던 세속주의가, 최근에는 종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이 더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세기의 세속주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조심해라! 인간 사회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철학은, 불안, 증오, 불행, 전쟁, 및 세계적 재난으로 인도할 뿐이다.

세속주의는 인류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침착해라! 세속적 반란을 통해서 교회의 전체주의로부터 얻은 유익을, 조급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방** 문명은 세속적 반란의 결과로, 오늘날 많은 자유와 성취감을 누리고 있다. 세속주의의 엄청난 잘못은 이렇다: 종교 권위가 생활을 거의 전부 통제하는 것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후에, 세속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을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미국 산업주의의 놀라운 독창성과 **서방** 문명의 전례 없는 물질적 진보는, 세속주의의 반란 덕분이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반란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과 참 종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세계 전쟁과 국제적인 불안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뒤따라서 발생했다.

현대 세속주의의 반란으로 말미암는 은총, 즉: 사랑, 사회 봉사, 민주 정치, 및 시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자들이 과학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참 종교에 대항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생활이 확장되면서 최근에 획득한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세속주의에만 있지는 않다. 20세기의 소득 이면에는, 과학과 세속주의의

The majority of professed Christians of Western civilization are unwittingly actual secularists.

195:8.4 (2081.4) It required a great power, a mighty influence, to free the thinking and living of the Western peoples from the withering grasp of a totalitarian ecclesiastical domination. Secularism did break the bonds of church control, and now in turn it threatens to establish a new and godless type of mastery over the hearts and minds of modern man. The tyrannical and dictatorial political state is the direct offspring of scientific materialism and philosophic secularism. Secularism no sooner frees man from the domination of the institutionalized church than it sells him into slavish bondage to the totalitarian state. Secularism frees man from ecclesiastical slavery only to betray him into the tyranny of political and economic slavery.

195:8.5 (2081.5) Materialism denies God, secularism simply ignores him; at least that was the earlier attitude. More recently, secularism has assumed a more militant attitude, assuming to take the place of the religion whose totalitarian bondage it onetime resisted. Twentieth-century secularism tends to affirm that man does not need God. But beware! this godless philosophy of human society will lead only to unrest, animosity, unhappiness, war, and world-wide disaster.

195:8.6 (2081.6) Secularism can never bring peace to mankind. Nothing can take the place of God in human society. But mark you well! do not be quick to surrender the beneficent gains of the secular revolt from ecclesiastical totalitarianism. Western civilization today enjoys many liberties and satisfactions as a result of the secular revolt. The great mistake of secularism was this: In revolting against the almost total control of life by religious authority, and after attaining the liberation from such ecclesiastical tyranny, the secularists went on to institute a revolt against God himself, sometimes tacitly and sometimes openly.

195:8.7 (2081.7) To the secularistic revolt you owe the amazing creativity of American industrialism and the unprecedented material progress of Western civilization. And because the secularistic revolt went too far and lost sight of God and true religion, there also followed the unlooked-for harvest of world wars and international unsettledness.

195:8.8 (2081.8) It is not necessary to sacrifice faith in God in order to enjoy the blessings of the modern secularistic revolt: tolerance, social service, democratic government, and civil liberties.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secularists to antagonize true religion in order to promote science and to advance education.

195:8.9 (2082.1) But secularism is not the sole parent of all these recent gains in the enlargement of living. Behind the gains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역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라는, 인정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영적 작용도 있다.

하나님 없이, 종교 없이, 과학적 세속주의는 결코 그 세력들을 조정할 수 없는데,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권, 종족, 및 민족주의를 조화시킬 수 없다. 이런 세속주의적 인간사회는, 전대미문의 유물론적 성취를 이뤘음에도,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적대관계의 붕괴를 방해하는 주요 응집 세력은 민족주의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세계 평화에 주요 장애물이다.

세속주의에 내재된 결점은, 세속주의가 정치와 권력을 위해 윤리와 종교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사람의 형제관계를 전혀 이룩할 수 없다.

비종교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낙관주의는 환상이다. **하나님** 없이는, 자유와 해방이 평화롭게 이뤄질 수 없으며, 소유와 풍요 역시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과학, 교육, 산업, 및 사회의 완전한 세속화는 재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20세기 초반 삼분의 일 기간에, **유란시아인**은 그때까지 전체 **그리스도교** 섭리시대를 통틀어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유물론과 세속주의의 무시무시한 추수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더 끔찍한 파괴가 아직 남아있다.

9. 그리스도교의 문제점

너희의 영적 유산의 가치, 심지어 유물론과 세속 시대의 황폐한 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흘러내려온 진리의 흐름을 간과하지 말라. 지나간 시절의 미신적 신조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값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가 영원한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나 인내하라! 미신에 저항하는 현재의 반란이 지나가면, **예수**의 복음이라는 진리가 새롭고 더 나은 길을 밝게 비추려고 영광스럽게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교화{異敎化} 되고 사회화 된 **그리스도교**는, 손상되지 않은 **예수**의 교훈과 새롭게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의 부족으로 인해 활기를 잃고 있다. **예수**의 종교에 대한 새롭고 더 완전한 계시가, 유물론적 세속주의의 제국을 정복하고, 기계론적 자연주의의 세계적 영향력을 타도하게 돼 있다. **유란시아**는 이제, 사회적 재조정, 도덕적 소생{蘇生}, 그리고 영적 계몽에 해당하는, 가장 놀랍고 황홀한 한 시기가 시작되는 출발선 바로 앞에서 전율하고 있다.

예수의 교훈은, 비록 크게 변경되기는 했지만

not only science and secularism but also the unrecognized and unacknowledged spiritual workings of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of Nazareth.

195:8.10 (2082.2) Without God, without religion, scientific secularism can never co-ordinate its forces, harmonize its divergent and rivalrous interests, races, and nationalisms. This secularistic human society, notwithstanding its unparalleled materialistic achievement, is slowly disintegrating. The chief cohesive force resisting this disintegration of antagonism is nationalism. And nationalism is the chief barrier to world peace.

195:8.11 (2082.3) The inherent weakness of secularism is that it discards ethics and religion for politics and power. You simply cannot establish the brotherhood of men while ignoring or denying the fatherhood of God.

195:8.12 (2082.4) Secular social and political optimism is an illusion. Without God, neither freedom and liberty, nor property and wealth will lead to peace.

195:8.13 (2082.5) The complete secularization of science, education, industry, and society can lead only to disaster. During the first third of the twentieth century Urantians killed more human beings than were killed during the whole of the Christian dispensation up to that tim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dire harvest of materialism and secularism; still more terrible destruction is yet to come.

9. CHRISTIANITY'S PROBLEM

195:9.1 (2082.6) Do not overlook the value of your spiritual heritage, the river of truth running down through the centuries, even to the barren times of a materialistic and secular age. In all your worthy efforts to rid yourselves of the superstitious creeds of past ages, make sure that you hold fast the eternal truth. But be patient! when the present superstition revolt is over, the truths of Jesus' gospel will persist gloriously to illuminate a new and better way.

195:9.2 (2082.7) But paganized and socialized Christianity stands in need of new contact with the uncompromised teachings of Jesus; it languishes for lack of a new vision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A new and fuller revelation of the religion of Jesus is destined to conquer an empire of materialistic secularism and to overthrow a world sway of mechanistic naturalism. Urantia is now quivering on the very brink of one of its most amazing and enthralling epochs of social readjustment, moral quickening, and spiritual enlightenment.

195:9.3 (2082.8) The teachings of Jesus, even though

만, 그것이 태동되던 때의 신비 종파들 속에서 살아남았고, 암흑기의 무지와 미신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20세기의 유물론, 기계론, 및 세속주의를 서서히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큰 시험과 패배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는, 항상 엄청난 계시가 임하는 시대다.

종교는, 새로운 지도자들, 즉 **예수**는 물론 그의 비밀 데 없는 교훈에만 오로지 용감하게 의존하는 영적 남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가 자체의 영적 사명을 무시하면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만 여전히 매달린다면, 영적 문예부흥은, 사람의 영적 갱생{更生}에만 오로지 헌신하면서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이런 새 선생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영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세계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및 정치적 재편성을 위한 지도력과 영감{靈感}을 재빨리 공급하게 될 것이다.

현대는, 가장 고상한,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과 모순되는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고 타협된 현대 **그리스도교**의 참된 원체의 기초를-- 곧 **예수**의 참된 생애와 교훈을-- 재발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원시인은 종교적 두려움에 미신적으로 묶인 인생을 살았다. 현대의 개화된 사람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종교에 붙잡히게 되지 않을까 항상 염려한다. 강력하고 진취적인 종교가 지배하려고 위협할 때, 그는 종교를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합리화, 전통화, 그리고 제도화하려고 변함없이 시도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시된 종교조차 사람이_만들고 사람이_지배하는 상태로 바뀐다. 현대의 남녀 지성인은, **예수**의 종교가 자신들_에게--그리고 자신들과 함께--무엇을 행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종교를 회피한다. 그리고 그런 모든 두려움에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예수**의 종교는, 믿는 자를 정말로 지배하고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일에 인생을 바치도록 요청하고, 사람의 형제관계로 인한 이타적 봉사애 삶의 에너지를 바치도록 요구한다.

이기적인 남녀는, 필사적 사람에게 일찍이 제공된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을 위해서도, 단지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직 어리석고 현혹시키는 이기심의 추구에 뒤따르는 슬픈 실망감에 사람이 충분히 환멸을 느끼게 될 때, 그리고 정형화된 종교의 무익함을 발견한 후에야, 천국 복음, 즉 **나사렛 예수**의 종교를 향해 전심으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세계는 직접 체험하는 종교를 더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조차 -- 20세기에 가장 앞선 종교조

greatly modified, survived the mystery cults of their birthtime, the ignorance and superstition of the dark ages, and are even now slowly triumphing over the materialism, mechanism, and secularism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such times of great testing and threatened defeat are always times of great revelation.

195:9.4 (2082.9) Religion does need new leaders, spiritual men and women who will dare to depend solely on Jesus and his incomparable teachings. If Christianity persists in neglecting its spiritual mission while it continues to busy itself with social and material problems, the spiritual renaissance must await the coming of these new teachers of Jesus' religion who will be exclusively devoted to the spiritual regeneration of men. And then will these spirit-born souls quickly supply the leadership and inspiration requisite for the social, moral, economic, and political reorganization of the world.

195:9.5 (2083.1) The modern age will refuse to accept a relig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facts and out of harmony with its highest conceptio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he hour is striking for a rediscovery of the true and original foundations of present-day distorted and compromised Christianity -- the real life and teachings of Jesus.

195:9.6 (2083.2) Primitive man lived a life of superstitious bondage to religious fear. Modern, civilized men dread the thought of falling under the dominance of strong religious convictions. Thinking man has always feared to be *held* by a religion. When a strong and moving religion threatens to dominate him, he invariably tries to rationalize, traditionalize, and institutionalize it, thereby hoping to gain control of it. By such procedure, even a revealed religion becomes man-made and man-dominated. Modern men and women of intelligence evade the religion of Jesus because of their fears of what it will do *to* them -- and *with* them. And all such fears are well founded. The religion of Jesus does, indeed, dominate and transform its believers, demanding that men dedicate their lives to seeking for a knowledge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requiring that the energies of living be consecrated to the unselfish serv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195:9.7 (2083.3) Selfish men and women simply will not pay such a price for even the greatest spiritual treasure ever offered mortal man. Only when man has become sufficiently disillusioned by the sorrowful disappointments attendant upon the foolish and deceptive pursuits of selfishness, and subsequent to the discovery of the barrenness of formalized religion, will he be disposed to turn wholeheartedly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religion of Jesus of Nazareth.

195:9.8 (2083.4) The world needs more firsthand religion. Even Christianity -- the best of the

차 -- **예수**에 관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하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종교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는 종교 교사들이 전하는 대로 종교를 받아들인다. **예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대로 세계가 그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의 교훈을 직접 알게 된다면, 각성하는 체험을 세계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사물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단어는 그 장면 그대로의 감동을 줄 수 없으며, 신조로 표현된 단어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아는 체험처럼 사람의 혼에게 영감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장차 기대되는 신앙은, 사람의 혼의 소망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고, 세상을 초월하는 신성한 가치를 갖는 영원한 영적 실체가 들어오도록 맞이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탐욕, 전쟁의_광기,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대담하게 낮춰버렸지만, **예수**의 종교는, 때 묻지 않고 초월적인 영적 소환장을 상징하면서, 이런 모든 동물적 진화 유산을 딛고 올라서라고, 그리고 참된 인간 운명의 도덕적 정상을 은혜로 달성하라고, 사람 속에서 힘껏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형식주의, 과대한 조직화, 지능주의, 그리고 다른 비영적{非靈的} 경향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어지는 인류 세대들에게 영적 전환을 계속 초대하라고 **예수**께서 위임했던 것 같은, 그런 활기찬 신자들의 형제단체가 아니다.

소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물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 돼버렸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고대의 여러 이교적 늪지대와 야만적 저습지를 고갈시키고 있으며; 유일한 원천이라고 가정되는 **갈릴리** 고지대는 물론, 옛 문화를 모아놓은 여러 저수지가, 이런 현대 문화의 흐름에 물을 주고 있다.

10. 미래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위하여 정말로 위대하게 봉사해왔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다. 세상은,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들의 체험 속에서,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회복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너희는 자신이 서있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문화는 **예수**의 생애의 새로운 계시{啓示}로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하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의 복음을 새롭게 이해함으로 빛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될 때, **예수**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복자 이상{以上}으로,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생활을 증진시키는 근원이 돼야 한다. 종교는,

relig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 is not only a religion *about* Jesus, but it is so largely one which men experience secondhand. They take their religion wholly as handed down by their accepted religious teachers. What an awakening the world would experience if it could only see Jesus as he really lived on earth and know, firsthand, his life-giving teachings! Descriptive words of things beautiful cannot thrill like the sight thereof, neither can creedal words inspire men's souls like the experience of knowing the presence of God. But expectant faith will ever keep the hope-door of man's soul open for the entrance of the eternal spiritual realities of the divine values of the worlds beyond.

195:9.9 (2083.5) Christianity has dared to lower its ideals before the challenge of human greed, war-madness, and the lust for power; but the religion of Jesus stands as the unsullied and transcendent spiritual summons, calling to the best there is in man to rise above all these legacies of animal evolution and, by grace, attain the moral heights of true human destiny.

195:9.10 (2083.6) Christianity is threatened by slow death from formalism, overorganization, intellectualism, and other nonspiritual trends. The modern Christian church is not such a brotherhood of dynamic believers as Jesus commissioned continuously to effect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mankind.

195:9.11 (2083.7) So-called Christianity has become a social and cultural movement as well as a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The stream of modern Christianity drains many an ancient pagan swamp and many a barbarian morass; many olden cultural watersheds drain into this present-day cultural stream as well as the high Galilean tablelands which are supposed to be its exclusive source.

10. THE FUTURE

195:10.1 (2084.1) Christianity has indeed done a great service for this world, but what is now most needed is Jesus. The world needs to see Jesus living again on earth in the experience of spirit-born mortals who effectively reveal the Master to all men. It is futile to talk about a revival of primitive Christianity; you must go forward from where you find yourselves. Modern culture must become spiritually baptized with a new revelation of Jesus' life and illuminated with a new understanding of his gospel of eternal salvation. And when Jesus becomes thus lifted up, he will draw all men to himself. Jesus' disciples should be more than conquerors, even overflowing sources of inspiration and enhanced living to all men. Religion is only an exalted humanism until it is made divine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신성하게 되기 전에는, 고상한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의 생애의 아름다움과 고상함, 인성{人性}과 신성{神性}, 소박함과 독특성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모든 시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사람의 형체를 입은 그토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증여로부터, 감히 영적으로 속박하는 신조를 형성하거나 신학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지해야만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주가 한 필사적 사람을 생기게 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영이 시간세계의 물질적 장애를 극복했고, 물리적 기원이라는 사실을 극복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우주의 최종적 상태를 이루는 신성한 운명에서, 영원한 인격 체험을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사랑의 영이시라는 선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언일 것이다.

주님을 위해 혼을 설득할 때, 사람과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은, 강제성, 의무, 또는 인습 때문에 억지로 가는 첫 1마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사랑하는 헌신과 얽매이지 않는 봉사라는 자발적인 **그다음 1마일**인데, **예수교인**{敎人}이 형제를 사랑으로 끌어안기까지, 그리고 필사자 실존의 더 높고 신성한 목적을 향해 영적 인도 아래로 내몰리기까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첫 1마일은 기꺼이 가지만, 진심으로 그다음 1마일을 가는 사람--곧 신앙을 고백한 추종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지라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대로 정말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인류가 도덕적 암흑 속에서 번민하고 비틀거린다.

예수의 천국 형제단체를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새롭고 변형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 초청하는 소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데,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예수**의 동무로서 이 땅에서 돌아다녔던 시절 이후로, 이처럼 동요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회 체계나 정치 체계는,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문명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됨으로써, **그리스도교**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한 가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동양**에서 그렇다.

교회중심주의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 나라의 영적 연합에서 형제관계를 이루

by the discovery of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in personal experience.

195:10.2 (2084.2) The beauty and sublimity, the humanity and divinity, the simplicity and uniqueness, of Jesus' life on earth present such a striking and appealing picture of man-saving and God-revealing that the theologians and philosophers of all time should be effectively restrained from daring to form creeds or create theological systems of spiritual bondage out of such a transcendental bestowal of God in the form of man. In Jesus the universe produced a mortal man in whom the spirit of love triumphed over the material handicaps of time and overcame the fact of physical origin.

195:10.3 (2084.3) Ever bear in mind — God and men need each other. They are mutually necessary to the full and final attainment of eternal personality experience in the divine destiny of universe finality.

195:10.4 (2084.4)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was probably the greatest pronouncement Jesus ever made, next to the declaration that his Father is a living and loving spirit.

195:10.5 (2084.5) In winning souls for the Master, it is not the first mile of compulsion, duty, or convention that will transform man and his world, but rather the *second* mile of free service and liberty-loving devotion that betokens the Jesusonian reaching forth to grasp his brother in love and sweep him on under spiritual guidance toward the higher and divine goal of mortal existence. Christianity even now willingly goes the *first* mile, but mankind languishes and stumbles along in moral darkness because there are so few genuine second-milers — so few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who really live and love as he taught his disciples to live and love and serve.

195:10.6 (2084.6) The call to the adventure of building a new and transformed human society by means of the spiritual rebirth of Jesus' brotherhood of the kingdom should thrill all who believe in him as men have not been stirred since the days when they walked about on earth as his companions in the flesh.

195:10.7 (2084.7) No social system or political regime which denies the reality of God can contribute in any constructive and lasting manner to the advancement of human civilization. But Christianity, as it is subdivided and secularized today, presents the greatest single obstacle to its further advancement; especially is this true concerning the Orient.

195:10.8 (2084.8) Ecclesiasticism is at once and forever incompatible with that living faith, growing

고 있는 **예수**의 신앙_동지들의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영, 및 직접 체험과 양립할 수 없다. 과거에 이론 업적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가혹한 욕구 때문에, 경배 체계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종종 저지된다. 고대의 사고(思考) 체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선의의 욕구가, 현대인의 확장되고 전진하는 정신의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주도록 고안된, 새롭고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후원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는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멋들어지게 서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참된 복음--곧 **나사렛 예수**의 교훈--의 즉각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충성하려는 많은 진지한 사람은, 그의 생애와 교훈의 참뜻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그가 설립했다고 잘못 가르쳐 오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후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께서는,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자신의 본성에 모순되지 않는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필생과업에 대한 현존하는 최고의 해석자로서 교회를 돌봐 왔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주님**의 계획표를 용감하게 지지하기만 한다면, 외견상 냉담하게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가, 그런 영적 이행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며, 이 엄청난 모험 전체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자체 표어들 가운데 하나인:“스스로 대적하여 나뉜 집은 지탱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될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비 **그리스도교** 세계는, 교파로 갈라진 **그리스도교**계에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곧 **예수**의 형제단체--는,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확실성**보다는 통일성을 특징으로 한다. 확실성은 기계론적 본성을 갖는 물리적 세계의 표시다. 영적 통일은, 살아있는 **예수**와 신앙으로 합동하여 생기는 열매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영적 형제단체의 진보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형제단체는, 제도화된 사회 조직과는 현저히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게 돼 있다. 이 형제단체는, 그런 사회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게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20세기의 **그리스도교**조차 결코 멀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많은 종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덕적 특별재능이 오랜 세월 혼합되어 생긴 산물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 선(善)을 제공해 오는 가장 큰 권능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며, 그러므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점들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강력한 도덕적 감정을 가진 사려 깊은 사람의 정신을 감동시키려고, 여전히 궁리하고 있다.

spirit, and firsthand experience of the faith-comrades of Jesus in the brotherhood of man in the spiritual associ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praiseworthy desire to preserve traditions of past achievement often leads to the defense of outgrown systems of worship. The well-meant desire to foster ancient thought systems effectually prevents the sponsoring of new and adequate means and methods designed to satisfy the spiritual longings of the expanding and advancing minds of modern men. Likewise, the Christian churches of the twentieth century stand as great, but wholly unconscious, obstacles to the immediate advance of the real gospel — th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195:10.9 (2085.1) Many earnest persons who would gladly yield loyalty to the Christ of the gospel find it very difficult enthusiastically to support a church which exhibits so little of the spirit of his life and teachings, and which they have been erroneously taught he founded. Jesus did not found the so-called Christian church, but he has,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his nature, fostered it as the best existent exponent of his lifework on earth.

195:10.10 (2085.2) If the Christian church would only dare to espouse the Master's program, thousands of apparently indifferent youths would rush forward to enlist in such a spiritual undertaking, and they would not hesitate to go all the way through with this great adventure.

195:10.11 (2085.3) Christianity is seriously confronted with the doom embodied in one of its own slogans: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The non-Christian world will hardly capitulate to a sect-divided Christendom. The living Jesus is the only hope of a possible unification of Christianity. The true church — the Jesus brotherhood — is invisible, spiritual, and is characterized by *unity*, not necessarily by *uniformity*. Uniformity is the earmark of the physical world of mechanistic nature. Spiritual unity is the fruit of faith union with the living Jesus. The visible church should refuse longer to handicap the progress of the invisible and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God. And this brotherhood is destined to become a *living organism* in contrast to an institutionalized social organization. It may well utilize such social organizations, but it must not be supplanted by them.

195:10.12 (2085.4) But the Christianity of even the twentieth century must not be despised. It is the product of the combined moral genius of the God-knowing men of many races during many ages, and it has truly been one of the greatest powers for good on earth, and therefore no man should lightly regard it, notwithstanding its inherent and acquired defects. Christianity still contrives to move the minds of reflective men with mighty moral emotions.

그렇지만 교회가 상업과 정치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으며, 그런 부정(不淨)한 동맹관계는 **주님**에 대한 악랄한 배반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발생되는 신앙을 감히 질식시켜 버리는 예가 종종 있었고, 비정통적인 옷을 입고 우연히 출현한 진리 수호자들을 용감하게 박해해 왔다는 사실을, 진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좀처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방식의 경배를 선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그런 교회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영적으로 나태한 많은 사람이, 제례적이고 신성시되는 전통들로 가득한 고대의 권위 종교를 갈망한다. 인간의 진화와 영적 진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 권위가 필요 없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 형제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및 기질적 부류에 속하는 이 동류(同類)의 집단이, 정말로 영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되기만 한다면, 그들을 잘 수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의 이 형제단체에는, 분파적 적대 관계도, 집단적 중오심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영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교인의 이런 다양한 집단화는, **서방** 문명에 젖은 다양한 민족 중에서 신자가 되려는 수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을 적응시키기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교**의 분열은, **예수**의 복음을 **동양** 민족들에게 전해주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나타낸다. 점점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로부터 구별되고, 어느 정도 다른 **예수**의 종교가 있음을, 이 종족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유란시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의 구원하는 메시지를 새롭게 확장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수**를 새롭게 드러낼 가능성에 있는데, 그 메시지는, 오늘날 공공연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집단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영적으로 연합시킬 것이다.

세속적인 교육일지라도, 인생 설계와 성품 진보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일에, 그 교육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런 위대한 영적 문예부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인생의 최고 목적, 즉 잘 균형 잡히고 장엄한 인격의 계발을 촉진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과도한 자기만족 대신에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종교는, 필사자의 생활을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영적 보상을, 그런 기초 위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는 일종의 즉석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 작동해야 한다. 빠른 속도의 영적 실행은, 새 종교 그리고 **예수**의 참 종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수용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195:10.13 (2085.5) But there is no excuse for the involvement of the church in commerce and politics; such unholy alliances are a flagrant betrayal of the Master. And the genuine lovers of truth will be slow to forget that this powerful institutionalized church has often dared to smother newborn faith and persecute truth bearers who chanced to appear in unorthodox raiment.

195:10.14 (2085.6) It is all too true that such a church would not have survived unless there had been men in the world who preferred such a style of worship. Many spiritually indolent souls crave an ancient and authoritative religion of ritual and sacred traditions. Human evolution and spiritual progress are hardly sufficient to enable all men to dispense with religious authority. And the invisible brotherhood of the kingdom may well include these family groups of various social and temperamental classes if they are only willing to become truly spirit-led sons of God. But in this brotherhood of Jesus there is no place for sectarian rivalry, group bitterness, nor assertions of moral superiority and spiritual infallibility.

195:10.15 (2086.1) These various groupings of Christians may serve to accommodate numerous different types of would-be believers among the various peoples of Western civilization, but such division of Christendom presents a grave weakness when it attempts to carry the gospel of Jesus to Oriental peoples. These races do not yet understand that there is a religion of Jesus separate, and somewhat apart, from Christianity, which has more and more become a religion about Jesus.

195:10.16 (2086.2) The great hope of Urantia lies in the possibility of a new revelation of Jesus with a new and enlarged presentation of his saving message which would spiritually unite in loving service the numerous families of his present-day professed followers.

195:10.17 (2086.3) Even secular education could help in this great spiritual renaissance if it w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work of teaching youth how to engage in life planning and character progression. The purpose of all education should be to foster and further the supreme purpose of life, the development of a majestic and well-balanced personality. There is great need for the teaching of moral discipline in the place of so much self-gratification. Upon such a foundation religion may contribute its spiritual incentive to the enlargement and enrichment of mortal life, even to the security and enhancement of life eternal.

195:10.18 (2086.4) Christianity is an extemporized religion, and therefore must it operate in low gear. High-gear spiritual performances must await the new revelation and the more general acceptance of the real religion of Jesus. But Christianity is a mighty religion, seeing that the commonplace

에 달렸던 목수의 보통 제자들이 그런 교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300년 만에 **로마** 전역을 석권했으며, 그 후에는 **로마**를 정복한 야만인들을 굴복시켰던 사실을 고려할 때, 위대한 종교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전체 흐름을 정복했다--즉 흡수했고 향상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교인** 종교가 신비 사상과 이교에 과잉 노출된 결과로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혼수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실질적으로는 **서방** 세계 전체를 다시 정복했다. **그리스도교**는 불멸{不滅}하게 될 만큼 충분한 **예수**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교훈을 더 많이 파악하기만 한다면, 현대인의 새롭고 증가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 사람의 마음 속에, 사회 체계, 산업 생활, 및 **서방** 문명의 도덕 기준의 일부라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이상주의가 결여된 과학, 원칙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도 얻는 재산, 억제되지 않는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양심적이지 못한 권력,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된 산업을 허용하는 죄를 범하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공동체를, 무의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서방** 문명의 사회 체계와 산업 정책을 후원하기를 중지하는 동시에, 그토록 용맹스럽게 찬양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거기서 필사적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를--곧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생생한 복음을-- **나사렛 예수**로부터 다시 배우는 데 있다.

disciples of a crucified carpenter set in motion those teachings which conquered the Roman world in three hundred years and then went on to triumph over the barbarians who overthrew Rome. This same Christianity conquered — absorbed and exalted — the whole stream of Hebrew theology and Greek philosophy. And then, when this Christian religion became comatose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as a result of an overdose of mysteries and paganism, it resurrected itself and virtually reconquered the whole Western world. Christianity contains enough of Jesus' teachings to immortalize it.

195:10.19 (2086.5) If Christianity could only grasp more of Jesus' teachings, it could do so much more in helping modern man to solve his new and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195:10.20 (2086.6) Christianity suffers under a great handicap because it has become identified in the minds of all the world as a part of the social system, the industrial life, and the moral standards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us has Christianity unwittingly seemed to sponsor a society which staggers under the guilt of tolerating science without idealism, politics without principles, wealth without work, pleasure without restraint, knowledge without character, power without conscience, and industry without morality.

195:10.21 (2086.7) The hope of modern Christianity is that it should cease to sponsor the social systems and industrial policies of Western civilization while it humbly bows itself before the cross it so valiantly extols, there to learn anew from Jesus of Nazareth the greatest truths mortal man can ever hear — the living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제 196편. 예수님의 신앙

⇨ 195

유랜시아 책

IV 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제 196편
예수님의 신앙

섹션

소개

1. 예수 -- 사람
2. 예수님의 종교
3. 종교의 우월성

PAPER 196

THE FAITH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 The Man
2. The Religion of Jesus
3. The Supremacy of Religion

소개

예수께서는, 숭고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녔다. 필사자 실존이 보통 겪는 오르내리는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종교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즉 내재하는 **조물사**의 활동에서 생겨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예수**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도, 단순히 지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순전히 영적이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일뿐 아니라, 거룩하고 정의롭고 위대하신 분으로 여겼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신성{神性}의 속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 마음 속에 깊이 간직했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셨다. **하나님**이 **아버지**지라는 개념을 **예수**가 창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또한 모든 필사 피조물을 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관념을 숭고한 체험으로 고양시키고 들어올렸다.

예수께서는, 마치 우주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적의에 차고 죄로 가득 찬 세상과의 사생결투에서 발버둥치는 혼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지는 않았으며; 신앙을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로 삼거나 절망 속에서 안식처로 삼지 않았으며; 신앙은 단지 즐겁지 못한 현실 혹은 삶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환상적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자

INTRODUCTION

196:0.1 (2087.1) JESUS enjoyed a sublime and wholehearted faith in God. He experienced the ordinary ups and downs of mortal existence, but he never religiously doubted the certainty of God's watchcare and guidance. His faith was the outgrowth of the insight born of the activity of the divine presence, his indwelling Adjuster. His faith was neither traditional nor merely intellectual; it was wholly personal and purely spiritual.

196:0.2 (2087.2) The human Jesus saw God as being holy, just, and great, as well as being true, beautiful, and good. All these attributes of divinity he focused in his mind as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Jesus' God wa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 living and loving Father in heaven.” The concept of God as a Father was not original with Jesus, but he exalted and elevated the idea into a sublime experience by achieving a new revelation of God and by proclaiming that every mortal creature is a child of this Father of love, a son of God.

196:0.3 (2087.3) Jesus did not cling to faith in God as would a struggling soul at war with the universe and at death grips with a hostile and sinful world; he did not resort to faith merely as a consolation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or as a comfort in threatened despair; faith was not just an illusory compensation for the unpleasant realities and the

실존이 당연히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일시적 모순에 직면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평안과 확실한 신뢰를 체험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앙으로 동행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엄청난 감격을 누렸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신앙은, 실제 영 달성을 이룩한 생생한 체험이었다. **예수**가 인간 체험의 가치에 가장 위대하게 공헌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많은 새로운 관념을 보여준 것이라기보다, 새롭고 높은 유형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인간적으로 숭고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세상 어디서도, 어떤 한 필사자 생애에서든지,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에서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생생한 실체**가 되신 적이 결코 없었다.

지방 창조계의 이 세상과 다른 어느 세상에서든지, **예수**의 **유란시아** 생애에서 새롭고 고귀한 유형의 종교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영적 관계를 갖는 데 기초를 두고, 순전히 몸소 체험한 최상의 권한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종교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 감상 이상이었고, 신비스런 명상이 아니었다.

신학은, 신앙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하고, 교리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보여준 **예수**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생생하고, 독창적이고, 자발적이고,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숭상이 아니었고, 신성시되는 신조(信條)로서 신봉하는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를 **확실히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확신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모든 영적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모든 모순된 욕망을 파멸시켰다.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이 영적 정박지에서 그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외견상 난관에 직면해서든지, 극심한 절망이나 실망의 고통에 처했을 때든지, 두려움 없이 영적 불굴성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신성의 임재 앞에 고요히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생활 속에서 고된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 뜻에 따르는 무조건적 순종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은, 굴욕적으로 죽임 당할 것이라는, 잔인하고 압도적인 위협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비범한 존재인 경우에, 강력한 영적 신앙이, 파괴적 광신(狂信), 즉 종교적 이기심의 과시로 직접 이끄는 일이 허다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실생활에서 자신의 특별한 신앙이나 영 달성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영적 희열은, 그가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것에 대한 전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혼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온전히 다_바치고 곱힐 줄 모르는 **예수**의 영적 신앙은 결코 광신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의 신앙은 실용적이고 평범한 사회적, 경제적, 및 도덕

sorrows of living. In the very face of all the natural difficulties and the temporal contradictions of mortal existence, he experienced the tranquillity of supreme and unquestioned trust in God and felt the tremendous thrill of living, by faith, in the very presence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is triumphant faith was a living experience of actual spirit attainment. Jesus' great contribution to the values of human experience was not that he revealed so many new ideas about the Father in heaven, but rather that he so magnificently and humanly demonstrated a new and higher type of *living faith in God*. Never on all the worlds of this universe, in the life of any one mortal, did God ever become such a *living reality* as in the human experience of Jesus of Nazareth.

196:0.4 (2087.4) In the Master's life on Urantia, this and all other worlds of the local creation discover a new and higher type of religion, religion based on personal spiritual relations with the Universal Father and wholly validated by the supreme authority of genuine personal experience. This living faith of Jesus was more than an intellectual reflection, and it was not a mystic meditation.

196:0.5 (2087.5) Theology may fix, formulate, define, and dogmatize faith, but in the human life of Jesus faith was personal, living, original, spontaneous, and purely spiritual. This faith was not reverence for tradition nor a mere intellectual belief which he held as a sacred creed, but rather a sublime experience and a profound conviction which *securely held him*. His faith was so real and all-encompassing that it absolutely swept away any spiritual doubts and effectively destroyed every conflicting desire. Nothing was able to tear him away from the spiritual anchorage of this fervent, sublime, and undaunted faith. Even in the face of apparent defeat or in the throes of disappointment and threatening despair, he calmly stood in the divine presence free from fear and fully conscious of spiritual invincibility. Jesus enjoyed the invigorating assurance of the possession of unflinching faith, and in each of life's trying situations he unflinchingly exhibited an unquestioning loyalty to the Father's will. And this superb faith was undaunted even by the cruel and crushing threat of an ignominious death.

196:0.6 (2088.1) In a religious genius, strong spiritual faith so many times leads directly to disastrous fanaticism, to exaggeration of the religious ego, but it was not so with Jesus. He was not unfavorably affected in his practical life by his extraordinary faith and spirit attainment because this spiritual exaltation was a wholly unconscious and spontaneous soul expression of his personal experience with God.

196:0.7 (2088.2) The all-consuming and indomitable spiritual faith of Jesus never became fanatical, for it never attempted to run away with his well-

적 생활 환경의 조화된 가치에 관한 잘 균형잡힌 지적 판단을, 한 번도 피해가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눈부시게 통합된 인간 인격이었으며; 완전하게 갖춘 신성한 존재였으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인간답고 신성한 통합된 존재로서 놀라운 정도로 조화를 이뤘다. **주님**은, 후에 속하는 신앙과 노련한 체험으로 얻은 지혜로운 평가(評價)를 항상 조화시켰다. 모든 인간 충성심--곧 개인의 명예, 가족의 사랑, 종교적 책무, 사회적 의무, 및 경제적 필요성--의 실체와 신성함을 예리하게 깨닫는 것과 조화롭게 어울린, 비길 데 없는 종교적 통일에서만, 개인 신앙, 영적 소망, 그리고 도덕적 헌신이 서로 관련됐다.

예수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영 가치를 보여줬으며; 따라서 그는, “먼저 하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진보되고 이상적인 천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충족되는 것을 봤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최고 핵심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뤄지소서”였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놀랄만한 자기 망각과 끝없는 열정으로 이를 실현하는 데 자신을 바쳤다. 그러나 그의 모든 집중적 사명에서, 그리고 이례적 생애 전반에 걸쳐서, 광신자의 격렬함이나 이기적 종교인의 피상적 천박함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생애 전체는, 살아있는 이 신앙, 숭고한 이 종교 체험으로 인해 한결같이 조절됐다. 이 영적 태도가, 그의 생각과 기분, 믿음과 기도, 가르침과 설교를 전적으로 지배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로 인한 확신과 안전에 거하는, 한 아들의 이런 개인 신앙이, 심오한 영적 실체성이라는 재능을 그의 독특한 생애에 부여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인**, 즉 **하나님**의 **갈릴리인**은 신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매우 깊게 의식하면서도,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바로 응답했다. 그런 굉장한 자기 망각을 대할 때,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토록 온전히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영역의 필사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신성한 뜻을 수행하는 장엄한 봉사에 자기 뜻을 성별(聖別)하여 봉헌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일관되게,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의거하여 종교를 해석했다. 너희가 종교 생활 중에서 기도 또는 다른 어떤 면이든지 고려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할 때, 그가 가르쳤던 것들 보다는, 그가 행했던 것들 더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결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기도란, 영적 태도에

balanced intellectual judgments concerning the proportional values of practical and commonplace social, economic, and moral life situations. The Son of Man was a splendidly unified human personality; he was a perfectly endowed divine being; he was also magnificently co-ordinated as a combined human and divine being functioning on earth as a single personality. Always did the Master co-ordinate the faith of the soul with the wisdom-appraisals of seasoned experience. Personal faith, spiritual hope, and moral devotion were always correlated in a matchless religious unity of harmonious association with the keen realization of the reality and sacredness of all human loyalties — personal honor, family love, religious obligation, social duty, and economic necessity.

196:0.8 (2088.3) The faith of Jesus visualized all spirit values as being found in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w in the advanced and ideal fellowship of the kingdom the achievement and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The very heart of the prayer which he taught his disciples was,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aving thus conceived of the kingdom as comprising the will of God, he devoted himself to the cause of its realization with amazing self-forgetfulness and unbounded enthusiasm. But in all his intense mission and throughout his extraordinary life there never appeared the fury of the fanatic nor the superficial frothiness of the religious egotist.

196:0.9 (2088.4) The Master's entire life was consistently conditioned by this living faith, this sublime religious experience. This spiritual attitude wholly dominated his thinking and feeling, his believing and praying, his teaching and preaching. This personal faith of a son in the certainty and security of the guidance and prot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imparted to his unique life a profound endowment of spiritual reality. And yet, despite this very deep consciousness of close relationship with divinity, this Galilean, God's Galilean, when addressed as Good Teacher, instantly replied, “Why do you call me good?” When we stand confronted by such splendid self-forgetfulness, we begin to understand how the Universal Father found it possible so fully to manifest himself to him and reveal himself through him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196:0.10 (2088.5) Jesus brought to God, as a man of the realm, the greatest of all offerings: the consecration and dedication of his own will to the majestic service of doing the divine will. Jesus always and consistently interpreted religion wholly in terms of the Father's will. When you study the career of the Master, as concerns prayer or any other feature of the religious life, look not so much for what he taught as for what he did. Jesus never prayed as a religious duty. To him prayer was a

대한 진지한 표현, 혼의 충성에 대한 선언, 개인적 헌신에 대한 설명, 감사의 표현, 감정적 긴장 상태의 피난처, 갈등에 대한 예방, 지적{知的} 작용에 대한 찬미, 욕구를 고상하게 바꾸는 것, 도덕적 결정을 변호하는 것, 사고{思考}를 풍성하게 하는 것, 높은 차원의 성향으로 이끄는 것, 충동을 정화시키는 것, 관점을 순수하게 해주는 것,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 복종, 신뢰에 대한 최고의 표현, 용기를 드러냄, 발견했다는 선포, 최상의 헌신을 고백함, 성별{聖別}의 정당성, 어려움에 대처하는 기법이고, 이기심과 악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간 경향에 항거하기 위해, 혼합된 혼의 능력을 강력하게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기도드리며 헌신하는 바로 그런 생애를 살았고, 바로 그런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쳤다.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그의 종교적 생애의 비밀은,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함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순서, 음성, 광경 또는 특별한 종교 습관이 아니라, 이성적 기도와 진지한 경배--곧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교류--로 달성했다.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종교는, 생생한 체험, 즉 영적 경외로부터 정의{正義} 실천에 이르기까지 직접 몸소 행동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아이들의 신앙처럼 미숙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정신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우주를 확고하게 신뢰했다--자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을 어린아이가 신뢰하듯이 신뢰했다. 우주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예수**의 진정한 신앙은, 땅 위의 주변상황이 안전하다고 믿는 어린아이의 신뢰와 매우 흡사했다. 그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존했고, 그의 열렬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한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한 순간도 의심치 않았다. 두려움, 의심, 및 회의{懷疑}로 인해 심하게 동요되지 않았다. 불신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다_자란 성인의 건장하고 지성적인 용기와, 잘 믿는 아이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낙천성을 겸비했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 없는 신뢰의 경지까지 성장했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신뢰하는 것 같은 순수성에 도달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순전하고 확실해서, 다른 존재들과 만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우주를 경이로워했다. 신성한 세계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므로,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을 기뻐하고 안심했다. 그는 종교 체험에서 머뭇거리며 핑계를 댈 적이 없었다. 다_자란 어른의 이런 위대한 지능 속에서, 종교적 의식{意識}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sincere expression of spiritual attitude, a declaration of soul loyalty, a recital of personal devotion, an expression of thanksgiving, an avoidance of emotional tension, a prevention of conflict, an exaltation of intellection, an ennoblement of desire, a vindication of moral decision, an enrichment of thought, an invigoration of higher inclinations, a consecration of impulse, a clarification of viewpoint, a declaration of faith, a transcendental surrender of will, a sublime assertion of confidence, a revelation of courage, the proclamation of discovery, a confession of supreme devotion, the validation of consecration, a technique for the adjustment of difficulties, and the mighty mobilization of the combined soul powers to withstand all human tendencies toward selfishness, evil, and sin. He lived just such a life of prayerful consecra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ended his life triumphantly with just such a prayer. The secret of his unparalleled religious life was this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God; and he attained it by intelligent prayer and sincere worship — unbroken communion with God — and not by leadings, voices, visions, or extraordinary religious practices.

196:0.11 (2089.1) In the earthly life of Jesus, religion was a living experience, a direct and personal movement from spiritual reverence to practical righteousness. The faith of Jesus bore the transcendent fruits of the divine spirit. His faith was not immature and credulous like that of a child, but in many ways it did resemble the unsuspecting trust of the child mind. Jesus trusted God much as the child trusts a parent. He had a profound confidence in the universe — just such a trust as the child has in its parental environment. Jesus' wholehearted faith in the fundamental goodness of the universe very much resembled the child's trust in the security of its earthly surroundings. He depended on the heavenly Father as a child leans upon its earthly parent, and his fervent faith never for one moment doubted the certainty of the heavenly Father's overcare. He was not disturbed seriously by fears, doubts, and skepticism. Unbelief did not inhibit the free and original expression of his life. He combined the stalwart and intelligent courage of a full-grown man with the sincere and trusting optimism of a believing child. His faith grew to such heights of trust that it was devoid of fear.

196:0.12 (2089.2) The faith of Jesus attained the purity of a child's trust. His faith was so absolute and undoubting that it responded to the charm of the contact of fellow beings and to the wonders of the universe. His sense of dependence on the divine was so complete and so confident that it yielded the joy and the assurance of absolute personal security. There was no hesitating pretense in his religious experience. In this giant intellect of the full-grown man the faith of the child reigned

어린이 같은 신앙이 완전히 지배했다. 그러므로 그가 언젠가, “너희가 어린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은 이상하지 않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이가 같았음*에도, 어떤 점에서도 *유치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요구하기보다 자기와 *함께* 믿으라고, 즉 사랑의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신분을 보장하는 담보물을 온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했다. **주님**은 모든 추종자가, 그의 초월적 신앙을 온전히 나눠 갖기를 바랐다. **예수**께서는, 그가 믿었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것 *처럼* 믿으라고, 추종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부탁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의 유일한 최고 요구사항의 온전한 의미다.

예수는 이 세상 생애를 한 가지 목적에 바쳤다--**아버지** 뜻을 행하는, 즉 인간 생애를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이가 신뢰하듯이 신뢰하는 것이었지만, 대강 어렵짐작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확고하고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좌절에 용기 있게 대처했으며, 엄청난 어려움을 단호히 극복했고, 엄격하게 요구된 의무에 단호하게 직면했다. **예수**께서 믿었던 것을 믿고, 또한 그가 믿었던 것 *이* 믿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자신감이 요구됐다.

1. 예수 -- 사람

아버지 뜻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바친 **예수**의 열정은, 필사자 결단과 인간적 결심 이상의 것이었으며, 사랑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기까지, 온 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다. **미가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인간 **예수**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며, 그는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은 그에게 속한다. 종교 자체가 잘못 해석되어, 고뇌하는 필사자로부터 인간 **예수**를 멀어지게 했음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그리스도**가 인간인지 신인지 토론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 종교적 사람이었다는 예외적 진리가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하며, 그는 일찍이 **유란시아**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참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신학 전통과 종교 교리 속에 열아홉 세기들 동안 그를 묻어놓은 무덤에서, 인간 **예수**의 상징적 부활을 목격하게 될 시기가 됐다.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라는 화려한 개념에,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희생 돼서는 안 된다. 본 계시를 통해서, 전통적 신학이라는 무덤으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재발견되고, 그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 살아있는 **예수**로서 제시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공헌이 되겠는가!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supreme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t is not strange that he once said, “Except you become as a little child, you shall not enter the kingdom.” Notwithstanding that Jesus’ faith was *childlike*, it was in no sense *childish*.

196:0.13 (2089.3) Jesus does not require his disciples to believe in him but rather to believe *with* him, believe in the reality of the love of God and in full confidence accept the security of the assurance of sonship with the heavenly Father. The Master desires that all his followers should fully share his transcendent faith. Jesus most touchingly challenged his followers, not only to believe *what* he believed, but also to believe *as* he believed. This is the full significance of his one supreme requirement, “Follow me.”

196:0.14 (2090.1) Jesus’ earthly life was devoted to one great purpose — doing the Father’s will, living the human life religiously and by faith. The faith of Jesus was trusting, like that of a child, but it was wholly free from presumption. He made robust and manly decisions, courageously faced manifold disappointments, resolutely surmounted extraordinary difficulties, and unflinchingly confronted the stern requirements of duty. It required a strong will and an unfailing confidence to believe what Jesus believed and as he believed.

1. JESUS — THE MAN

196:1.1 (2090.2) Jesus’ devotion to the Father’s will and the service of man was even more than mortal decision and human determination; it was a wholehearted consecration of himself to such an unreserved bestowal of love. No matter how great the fact of the sovereignty of Michael, you must not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men. The Master has ascended on high as a man, as well as God; he belongs to men; men belong to him. How unfortunate that religion itself should be so misinterpreted as to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struggling mortals! Let not the discussions of the humanity or the divinity of the Christ obscure the saving truth that Jesus of Nazareth was a religious man who, by faith, achieved the knowing and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he was the most truly religious man who has ever lived on Urantia.

196:1.2 (2090.3) The time is ripe to witness the figurative resurrection of the human Jesus from his burial tomb amidst the theological traditions and the religious dogmas of nineteen centuries. Jesus of Nazareth must not be longer sacrificed to even the splendid concept of the glorified Christ. What a transcendent service if, through this revelation, the Son of Man should be recovered from the tomb of traditional theology and be presented as the living Jesus to the church that bears his name, and to all other religions! Surely

타적 봉사를 위해 성별{聖別}하는, 실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줬던 **주님**의 “뒤를 좇아” 가도록, 신앙과 살아가는 습관을 주저하지 않고 조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교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사회적 체면과 이기적인 경제적 부적응으로 자기만 만족시키는, 성별되지 않은 교제가 노출될까봐 두려워할까? **갈릴리의 예수**께서, 필사적 사람들의 정신과 혼 속에, 종교적인 개인 생애의 이상{理想}으로서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면,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인 성직의 권위가 위협 받거나 폐지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할까? 정말로,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관한 신학적 종교를 갑자기 대체하게 된다면, 사회적 재조정, 경제적 전환, 도덕적 원상 복구, 그리고 **그리스도교** 문명의 종교적 개편이 격렬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 신앙을 몸소 공유하고, 사람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한 **주님**의 일생의 참뜻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무엇을 믿었는지 찾아내고, 그의 이상을 발견하여, 그의 승화된 인생의 목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예수**의 종교적 생애와 그가 어떻게 그런 생애를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며, 그런 진리가 다시 세상에 선포된다면, 종교적 동기에 거룩히 바친 그의 진지한 인간 생애가 제시될 때, 다시 응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꺼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 것은, 자신과 똑같은, 즉 꾸밈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종교 교사는 정말로 평신도였다.

천국을 믿는 자의 목표는, 육신을 입은 **예수**의 겉으로 나타난 생활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사람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에 대해 반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전자{前者}에 대해서는 산 증인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이 됐다.

인간 세계를 자각한 때부터 신성한 세계를 깨닫기까지 사람이 진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상승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필사자 지능의 신앙, 그리고 자신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의 활동을 공동으로 성취함으로써, 인간 세계로부터 신성한 세계로, 이처럼 위대한 상승을 이뤘다. 신성 총체를 달성했음을 사실로 깨닫기까지, (이 기간 내내 인성의 실체를 온전히 의식하면서) 점차 신성화돼 가는 것을 신앙으로 의식하는 일곱 단계가 있었다. 이런 발전적 자아_실

the Christian fellowship of believers will not hesitate to make such adjustments of faith and of practices of living as will enable it to “follow after” the Master in the demonstration of his real life of religious devo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of consecra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man. Do professed Christians fear the exposure of a self-sufficient and unconsecrated fellowship of social respectability and selfish economic maladjustment? Does institutional Christianity fear the possible jeopardy, or even the overthrow, of traditional ecclesiastical authority if the Jesus of Galilee is reinstated in the minds and souls of mortal men as the ideal of personal religious living? Indeed, the social readjustments, the economic transformations, the moral rejuvenations, and the religious revisions of Christian civilization would be drastic and revolutionary if the living religion of Jesus should suddenly supplant the theologic religion about Jesus.

196:1.3 (2090.4) To “follow Jesus” means to personally share his religious faith and to enter into the spirit of the Master’s life of unselfish service for ma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human living is to find out what Jesus believed, to discover his ideals, and to strive for the achievement of his exalted life purpose. Of all human knowledge, that which is of greatest value is to know the religious life of Jesus and how he lived it.

196:1.4 (2090.5) The common people heard Jesus gladly, and they will again respond to the presentation of his sincere human life of consecrated religious motivation if such truths shall again be proclaimed to the world. The people heard him gladly because he was one of them, an unpretentious layman; the world’s greatest religious teacher was indeed a layman.

196:1.5 (2091.1) It should not be the aim of kingdom believers literally to imitate the outward life of Jesus in the flesh but rather to share his faith; to trust God as he trusted God and to believe in men as he believed in men. Jesus never argued about either the fatherhood of God or the brotherhood of men; he was a living illustration of the one and a profound demonstration of the other.

196:1.6 (2091.2) Just as men must progres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human to the realization of the divine, so did Jesus ascend from the nature of man to the consciousness of the nature of God. And the Master made this great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by the conjoint achievement of the faith of his mortal intellect and the acts of his indwelling Adjuster. The fact-realization of the attainment of totality of divinity (all the while fully conscious of the reality of humanity) was attended by seven stages of faith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divinization. These stages of

현 단계는, **주님**의 증여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이례적 사건들로 구별됐다:

1. **사고 조율사**의 도착.
2. 열두 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출현했던 **임마누엘**의 사자.
3. 세례식 때 수반됐던 여러 현시{顯示}.
4. **변형되신 산**에서 겪은 체험.
5. 모론시아 부활.
6. 영으로서 승천{昇天}.
7. **낙원 아버지**께 마침내 포용됨으로써, 우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수여받음.

progressive self-realization were marked off by the following extraordinary events in the Master's bestowal experience:

- 196:1.7 (2091.3) 1. The arrival of the Thought Adjuster.
- 196:1.8 (2091.4) 2. The messenger of Immanuel who appeared to him at Jerusalem when he was about twelve years old.
- 196:1.9 (2091.5) 3. The manifestations attendant upon his baptism.
- 196:1.10 (2091.6) 4. The experience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 196:1.11 (2091.7) 5. The morontia resurrection.
- 196:1.12 (2091.8) 6. The spirit ascension.
- 196:1.13 (2091.9) 7. The final embrace of the Paradise Father, conferring unlimit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2. 예수 의 종교

언젠가 **그리스도교** 교회에 충분한 정도의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의 변질되지 않은 종교적 교훈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는 **예수**에 관한 종교를 전도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예수**의 종교를 실천해야 한다. **오순절** 열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새 종교를 탄생시켰는데,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교였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새로운 이 복음을 **그리스도교**로 변형시켰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학 견해를 삽입시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독특한 개인 체험을 묘사한 종교였다. 천국 복음은 **갈릴리 예수**께서 몸소 겪은 종교 체험에 기초한 반면; **그리스도교**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 종교 체험에 기초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의미심장하고 영감을 주는 **예수**의 종교적 생애를 묘사하기보다는, **바울**의 종교 체험에 대한 토론과 그의 개인 종교 신념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의 어떤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런 진술 중에서 주목할 예외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이다. **베드로**마저, 자신의 글에서 단지 한번 **예수**의 개인 종교 생애에 눈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신약 성경**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교** 문서이지만, **예수교인**의 문서라고 하기에는 빈약할 따름이다.

육신을 입은 **예수**의 생애는, 원시적 두려움과 인간적 경외심이 나타나는 초기 관념으로부터, 몸소 영적 교류를 나누는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아버지**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숭고한 신분에 도달하는 위대한 종교적 성장을 묘사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한 번의 짧은 생애 동안에, 사람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어지는 **낙원** 이전{以前} 생애 수

2. THE RELIGION OF JESUS

196:2.1 (2091.10) Some day a reformation in the Christian church may strike deep enough to get back to the unadulterated religious teachings of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You may *preach* a religion *about* Jesus, but, perforce, you must *live* the religion *of* Jesus. In the enthusiasm of Pentecost, Peter unintentionally inaugurated a new religion, the religion of the risen and glorified Christ. The Apostle Paul later on transformed this new gospel into Christianity, a religion embodying his own theologic views and portraying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Jesus of the Damascus road.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founded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Jesus of Galilee; Christianity is founded almost exclusively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Apostle Paul. Almost the whole of the New Testament is devoted, not to the portrayal of the significant and inspiring religious life of Jesus, but to a discussion of Paul's religious experience and to a portrayal of his personal religious convictions. The only notable exceptions to this statement, aside from certain parts of Matthew, Mark, and Luke, are the Book of Hebrews and the Epistle of James. Even Peter, in his writing, only once reverted to the personal religious life of his Master. The New Testament is a superb Christian document, but it is only meagerly Jesusonian.

196:2.2 (2091.11) Jesus' life in the flesh portrays a transcendent religious growth from the early ideas of primitive awe and human reverence up through years of personal spiritual communion until he finally arrived at that advanced and exalted status of the consciousness of his oneness with the Father. And thus, in one short life, did Jesus traverse that experience of religious spiritual

준의 여러 영 훈련 학교에서 오래 머문 후에야 대개 성취하게 되는, 종교적인 영적 진보의 체험을 모두 거쳤다. **예수**께서는 개인 종교 체험에서 신앙으로 확신하는, 순전히 인간적으로 의식하는 경지로부터,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숭고한 영적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주 경영에서 **만유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식하기까지 나아갔다. 그는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자극받을 만큼, 필사자로서 의존하는 겸손한 신분으로부터,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취된 신성을 숭고하게 자각하기까지 나아갔다. 인간 세계로부터 신성한 세계에 이르는 이런 점진적 상승은, 전적으로 필사자로서 성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성에 도달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및 누가복음은,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훌륭하게 분투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다. **요한 복음**은, **예수**께서 신성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님**의 생애를 연구해 온 자들이 저지른 큰 실수는, 더러는 그를 완전히 인간으로 여기는 반면, 더러는 그를 오로지 신(神)으로 여긴 점이였다. 그가 체험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인간인 동시에 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졌다고** 인식되기는 했어도, 신성한 **예수**(곧 **그리스도**)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종교가 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찬미하도록 했지만, **갈릴리**의 분투하는 썩썩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린 반면, 인간 **예수**는, 개인의 종교적 신앙의 용기와 내재하는 **조울사**의 영웅적 행위로, 낮은 단계의 인성으로부터 신성과 하나 되는 경지까지 올라갔고, 이처럼 어떤 필사자든지 그렇게 인성으로부터 신성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새 생명의 길이 됐다. 어떤 영성 단계든지, 어떤 세계의 필사자든지, 낮은 영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신성한 가치에 이르기까지, 몸소 겪는 모든 영적 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진하는 동안, 힘과 영감을 주는 무엇을 **예수**의 개인 생애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저자{著者}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절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히 돌아오리라는 것을 열렬히 진심으로 믿었다. **주**{主}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이런 강한 신앙은, **주님**의 순전히 인간적인 체험과 속성들을 묘사해 주는 그런 자료를, 기록에서 생략하려는 풍조를 많이 부추겼다. 전체 **그리스도교**

progression which man begins on earth and ordinarily achieves only at the conclusion of his long sojourn in the spirit training schools of the successive levels of the pre-Paradise career. Jesus progressed from a purely human consciousness of the faith certainties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to the sublime spiritual heights of the positive realization of his divine nature and to the consciousness of his close association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the management of a universe. He progressed from the humble status of mortal dependence which prompted him spontaneously to say to the one who called him Good Teacher, “Why do you call me good? None is good but God,” to that sublime consciousness of achieved divinity which led him to exclaim, “Which one of you convicts me of sin?” And this progressing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was an exclusively mortal achievement. And when he had thus attained divinity, he was still the same human Jesus, the Son of Man as well as the Son of God.

196:2.3 (2092.1) Mark, Matthew, and Luke retain something of the picture of the human Jesus as he engaged in the superb struggle to ascertain the divine will and to do that will. John presents a picture of the triumphant Jesus as he walked on earth in the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The great mistake that has been made by those who have studied the Master's life is that some have conceived of him as entirely human, while others have thought of him as only divine. Throughout his entire experience he was truly both human and divine, even as he yet is.

196:2.4 (2092.2) But the greatest mistake was made in that, while the human Jesus was recognized as *having* a religion, the divine Jesus (Christ) almost overnight became a religion. Paul's Christianity made sure of the adoration of the divine Christ, but it almost wholly lost sight of the struggling and valiant human Jesus of Galilee, who, by the valor of his personal religious faith and the heroism of his indwelling Adjuster, ascended from the lowly levels of humanity to become one with divinity, thus becoming the new and living way whereby all mortals may so ascend from humanity to divinity. Mortals in all stages of spirituality and on all worlds may find in the personal life of Jesus that which will strengthen and inspire them as they progress from the lowest spirit levels up to the highest divine valu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ll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196:2.5 (2092.3)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the authors not only most profoundly believed in the divinity of the risen Christ, but they also devotedly and sincerely believed in his immediate return to earth to consummate the heavenly kingdom. This strong faith in the Lord's immediate return had much to do with the tendency to omit from the record those references

운동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즉 영광을 얻고 곧 다시 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쪽으로 멀어졌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의 형제관계를 위해 봉사하면서 몸소 체험하는 종교를 설립했으나, **바울**은, 영광을 받은 **예수**를 숭배 대상으로 삼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로 구성된 형제단체를 수립했다. 신이자 인간인 생애동안 **예수**의 증여에 잠재돼 있던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추종자들이 통합된 종교를 만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인데, 만약 그렇게 통합했다면, **주님**의 인간적인 본성과 신성한 본성 둘 다 그의 이 세상 생애동안에 떨어질 수 없도록 묶여있던 대로, 그리하여 원래의 천국 복음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제시됐던 대로, 둘 다 올바르게 알아봤을 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헌신적인 종교인이었음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의 일부 강경한 발언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거리낌 없이 일생을 바친, 완전히 헌신한 필사자였다. 무정한 듯한 그의 말씀 가운데 다수는, 추종자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기보다, 본인의 신앙 고백과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런 오로지 한 가지 목적과 이타적 헌신 때문에, 그는 짧은 생애동안에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일에 그토록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가 선언한 말씀 가운데 다수는, 모든 추종자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과한 요구를 고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대의(大義)를 위해 헌신하면서, **예수**께서는 배수진(背水陣)을 쳤으며,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축복한 것은, 그들이 대개 진지하고 신앙심 깊었기 때문이며; 부자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대개 방종하고 신앙심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신앙 없는 가난뱅이를 비난하고, 헌신적이면서 경건한 부자를 칭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도했으며; 금기(禁忌)에 노예 된 처지로부터 그들을 구했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이 세상 생애로부터 도피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훌륭히 해내는 기법을 터득했다. 그는 현실 세계의 한 복판에서 이상적 종교 생활의 경지에 도달했다. **바울**은 인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고, 생존하기로 선택한 그들 앞에 펼쳐질 장엄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봤다. 도덕적으로 비관적이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악

which portrayed the purely human experiences and attributes of the Master. The whole Christian movement tended away from the human picture of Jesus of Nazareth toward the exaltation of the risen Christ, the glorified and soon-returning Lord Jesus Christ.

196:2.6 (2092.4) Jesus founded the religion of personal experience in doing the will of God and serving the human brotherhood; Paul founded a religion in which the glorified Jesus became the object of worship and the brotherhood consisted of fellow believers in the divine Christ. In the bestowal of Jesus these two concepts were potential in his divine-human life, and it is indeed a pity that his followers failed to create a unified religion which might have given proper recognition to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natures of the Master as they were inseparably bound up in his earth life and so gloriously set forth in the original gospel of the kingdom.

196:2.7 (2093.1) You would be neither shocked nor disturbed by some of Jesus' strong pronouncements if you would only remember that he was the world's most wholehearted and devoted religionist. He was a wholly consecrated mortal, unreservedly dedicated to doing his Father's will. Many of his apparently hard sayings were more of a personal confession of faith and a pledge of devotion than commands to his followers. And it was this very singleness of purpose and unselfish devotion that enabled him to effect such extraordinary progress in the conquest of the human mind in one short life. Many of his declar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fession of what he demanded of himself rather than what he required of all his followers. In his devotion to the cause of the kingdom, Jesus burned all bridges behind him; he sacrificed all hindrances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196:2.8 (2093.2) Jesus blessed the poor because they were usually sincere and pious; he condemned the rich because they were usually wanton and irreligious. He would equally condemn the irreligious pauper and commend the consecrated and worshipful man of wealth.

196:2.9 (2093.3) Jesus led men to feel at home in the world; he delivered them from the slavery of taboo and taught them that the world was not fundamentally evil. He did not long to escape from his earthly life; he mastered a technique of acceptably doing the Father's will while in the flesh. He attained an idealistic religious life in the very midst of a realistic world. Jesus did not share Paul's pessimistic view of humankind. The Master looked upon men as the sons of God and foresaw a magnificent and eternal future for those who chose survival. He was not a moral skeptic; he viewed man positively, not negatively. He saw most men as weak rather than wicked, more

하기보다 약하다고, 타락했다기보다 마음이 산란하다고 봤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의 형제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속에서 그들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사람을 위한 끊임없는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내줄 수 있었다. 유한한 존재가 이렇게 무한하게 가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는 황금률을 핵심으로 삼았다. **예수**께서 특별히 믿어주는 데도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을 필사자가 있을까?

예수께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명은 종교적인 것이었고,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의 체험이다. 최고의 사회 진보를 성취하는 궁극적 목표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과 **예수**의 형제관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사회가 달성할 모든 이상(理想)은, 이런 신성한 나라를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다.

distraught than depraved. But no matter what their status, they were all God's children and his brethren.

196:2.10 (2093.4) He taught men to place a high value upon themselves in time and in eternity. Because of this high estimate which Jesus placed upon men, he was willing to spend himself in the unremitting service of humankind. And it was this infinite worth of the finite that made the golden rule a vital factor in his religion. What mortal can fail to be uplifted by the extraordinary faith Jesus has in him?

196:2.11 (2093.5) Jesus offered no rules for social advancement; his was a religious mission, and religion is an exclusively individual experience. The ultimate goal of society's most advanced achievement can never hope to transcend Jesus' brotherhood of me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The ideal of all social attainment can be realized only in the coming of this divine kingdom.

3. 종교의 우월성

개인의 영적 종교 체험은, 필사자가 겪는 대부분의 곤경에 효율적인 해결책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조절한다. 종교는, 인간의 곤란한 문제를 없애거나 파괴하지는 않지만, 이를 용해하고 흡수하고 밝혀주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모든 요구 사항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인격을 통합한다. 종교적 신앙은--곧 내재하는 신성한 현존의 적극적인 인도는-- **하나님**을_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적 제1 근원**을 **그것**으로 인식하는 지적 논리와, **이 제1 근원**을 **그분**이라고 단언하는 혼의 적극적 선언,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예수**의 복음에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인간을 구원하는 인격있는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실체에는 정확히 세 요소가 있는데: 사실, 관념, 및 관계다. 종교적 의식(意識)은 이런 실체들을, 과학, 철학, 및 진리로 간주한다. 철학은 이런 활동을, 이성, 지혜, 및 신앙으로--곧 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및 영적 실체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실체들을, 사물, 의미, 및 가치로 명시하는 습관이 있다.

실체를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과 대등하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실체와 일치됨을 자각하는 것은, 자아_완성--곧 자아_완전성, 자아_전체성--을 체험하는 것과 대등하다. 실체 전체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_아는 체험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3. THE SUPREMACY OF RELIGION

196:3.1 (2093.6) Personal, spiritual religious experience is an efficient solvent for most mortal difficulties; it is an effective sorter, evaluator, and adjuster of all human problems. Religion does not remove or destroy human troubles, but it does dissolve, absorb, illuminate, and transcend them. True religion unifies the personality for effective adjustment to all mortal requirements. Religious faith — the positive leading of the indwelling divine presence — unfailingly enables the God-knowing man to bridge that gulf existing between the intellectual logic which recognizes the Universal First Cause as *It* and those positive affirmations of the soul which aver this First Cause is *He*, the heavenly Father of Jesus' gospel, the personal God of human salvation.

196:3.2 (2094.1) There are just three elements in universal reality: fact, idea, and relation.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dentifies these realities as science, philosophy, and truth. Philosophy would be inclined to view these activities as reason, wisdom, and faith — physical reality, intellectual reality, and spiritual reality. We are in the habit of designating these realities as thing, meaning, and value.

196:3.3 (2094.2) The progressive comprehension of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approaching God. The finding of God, the consciousness of identity with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the experiencing of self-completion — self-entirety, self-totality. The experiencing of total reality is the full realization of God, the finality of the God-knowing experience.

인간의 생애에 대한 최고의 요약은, 사람은 사실로 교육받고, 지혜로 고상해지며, 종교적 신앙으로 구원된다는--곧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인식이다.

물리적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으며;도덕적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있으며;영적 확실성은 참된 종교 체험이라는 진리에 있다.

사람의 정신은, 전적으로 물질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과, 그에 상응하는 신성한 가치 분야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 속에는 영 핵이 있다--곧 신성한 현존인 **조울사**가 있다. 인간의 정신에 이런 **조울사**가 내재하고 있음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증거가 있다:

1. 인도주의적 교제 --사랑. 순전히 동물적인 정신은 자기 방어를 위해 집단을 이룰 수 있겠지만, 영이 내주하는 지능만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남을 위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2. 우주에 대한 해석 --지혜. 우주가 각 개인에게 호의적임을, 영이 내주하는 정신만 납득할 수 있다.

3. 인생에 대한 영적 평가 --경배. 오직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신성한 현존을 깨달을 수 있으며, 신성을 미리 맛보는 더 온전한 체험을 달성하고자 추구한다.

인간의 정신은 참된 가치를 창조하지 않으며; 인간의 체험은 우주적 통찰력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고 영적 의미를 식별하는 통찰력에 관해서, 인간의 정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발견, 인식, 해석, 및 선택이 전부다.

우주의 도덕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필사 정신의 세 가지 기본 판단, 즉 선택함으로 지적 재산이 될 수 있다:

1. 자아_판단 --도덕적 선택.
2. 사회적_판단 --윤리적 선택.
3. **하나님**에 대한_판단 --종교적 선택.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진보는 **계시의 진화**라는 공동 기법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

신성한 연인{戀人}이 사람 속에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타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석하는 존재가 정신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람은 우주의 통일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평가하는 존재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는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연인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바로 그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며;이 해석자는 **우주의 통일성**의 한 부분이며;이 평가자는, 신성하고

196:3.4 (2094.3) The full summation of human life is the knowledge that man is educated by fact, ennobled by wisdom, and saved — justified — by religious faith.

196:3.5 (2094.4) Physical certainty consists in the logic of science; moral certainty, in the wisdom of philosophy; spiritual certainty, in the truth of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196:3.6 (2094.5) The mind of man can attain high levels of spiritual insight and corresponding spheres of divinity of values because it is not wholly material. There is a spirit nucleus in the mind of man — the Adjuster of the divine presence. There are three separate evidences of this spirit indwelling of the human mind:

196:3.7 (2094.6) 1. Humanitarian fellowship — love. The purely animal mind may be gregarious for self-protection, but only the spirit-indwelt intellect is unselfishly altruistic and unconditionally loving.

196:3.8 (2094.7) 2.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 wisdom. Only the spirit-indwelt mind can comprehend that the universe is friendly to the individual.

196:3.9 (2094.8) 3. Spiritual evaluation of life — worship. Only the spirit-indwelt man can realize the divine presence and seek to attain a fuller experience in and with this foretaste of divinity.

196:3.10 (2094.9) The human mind does not create real values; human experience does not yield universe insight. Concerning insight, the recognition of moral values and the discernment of spiritual meanings, all that the human mind can do is to discover, recognize, interpret, and *choose*.

196:3.11 (2094.10) The moral values of the universe become intellectual possessions by the exercise of the three basic judgments, or choices, of the mortal mind:

- 196:3.12 (2094.11) 1. Self-judgment — moral choice.
- 196:3.13 (2094.12) 2. Social-judgment — ethical choice.
- 196:3.14 (2094.13) 3. God-judgment — religious choice.

196:3.15 (2094.14) Thus it appears that all human progress is effected by a technique of conjoint *revelational evolution*.

196:3.16 (2094.15) Unless a divine lover lived in man, he could not unselfishly and spiritually love. Unless an interpreter lived in the mind, man could not truly realize the unity of the universe. Unless an evaluator dwelt with man, he could not possibly appraise moral values and recognize spiritual meanings. And this lover hails from the very source of infinite love; this interpreter is a part of Universal Unity; this evaluator is the child of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absolute values of divine

영원한 실체의 전체 절대 가치인 **중심 및 근원**의 자녀다.

종교적 의미를--곧 영적 통찰력을-- 갖는 도덕적 평가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물질과 영, 인간과 신성, 시간과 영원 사이에 개인이 선택함을 암시한다. 인간의 생존은 영적 가치 분류자--곧 내주하는 해석자이자 통합자--가 선택한 그런 가치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전념하여 선택하는가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다. 개인의 종교 체험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인간 정신 속에서 발견하는 단계와, 내재하는 신성한 영이 계시하는 단계다. 지나치게 고상하거나,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의 결과로, 한 개인 또는 심지어 한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신성한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거나 그 계시를 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내주하는 **사고 조물사**의 현존과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신성하게 내주하는 실체에 대한 이런 의미심장한 체험은, 자연 과학의 미숙한 유물론적 기법을 영원히 초월한다. 너희는, 영적 기쁨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는 없으며; 사랑을 저울에 달아 볼 수 없으며; 도덕적 가치를 자로 잰 수 없으며; 또한 영적 경배의 질{質}을 평가할 수도 없다.

히브리인은 도덕적으로 숭고한 종교를 가졌으며; **그리스인**은 미{美}의 종교를 발전시켰으며; **바울**과 그 수제자들은, 신앙, 소망, 및 자비의 종교를 세웠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종교: 즉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는 종교, 그리고 인간이 형제관계로 봉사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종교를 계시했고 예증{例證}했다.

사람은, 사려 깊은 도덕적 선택을 할 때마다, 자신의 혼 속에 새로운 신성한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즉시 체험한다. 도덕적 선택은, 외부 조건에 대한 내적 반응의 동기로서, 종교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런 실제 종교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성 총체--곧 우주와 그 **조물주**--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지성적으로 응답하는 개인의 주관성 전체를 뜻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답고 숭고한 체험은, 너무나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령적 환상이 될 수는 없다. 필사적 존재들과 관련돼 있는 단 하나의 신성하고 객관적인 실체인 **사고 조물사**는, 인간이 관측하기에, 순전히 주관적 현상으로서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이 최고 객관적 실체인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그를 알고 그에게 경배 드리고 그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and eternal reality.

196:3.17 (2095.1) Moral evaluation with a religious meaning — spiritual insight — connotes the individual's choice between good and evil, truth and error, material and spiritual, human and divine, time and eternity. Human survival is in great measure dependent on consecrating the human will to the choosing of those values selected by this spirit-value sorter — the indwelling interpreter and unifie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consists in two phases: discovery in the human mind and revelation by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hrough oversophistication or as a result of the irreligious conduct of professed religionists, a man, or even a generation of men, may elect to suspend their efforts to discover the God who indwells them; they may fail to progress in and attain the divine revelation. But such attitudes of spiritual nonprogression cannot long persist because of the presence and influence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196:3.18 (2095.2) This profound experience of the reality of the divine indwelling forever transcends the crude materialistic technique of the physical sciences. You cannot put spiritual joy under a microscope; you cannot weigh love in a balance; you cannot measure moral values; neither can you estimate the quality of spiritual worship.

196:3.19 (2095.3) The Hebrews had a religion of moral sublimity; the Greeks evolved a religion of beauty; Paul and his conferees founded a religion of faith, hope, and charity. Jesus revealed and exemplified a religion of love: security in the Father's love, with joy and satisfaction consequent upon sharing this love in the service of the human brotherhood.

196:3.20 (2095.4) Every time man makes a reflective moral choice, he immediately experiences a new divine invasion of his soul. Moral choosing constitutes religion as the motive of inner response to outer conditions. But such a real religion is not a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It signifies the whole of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engaged in a meaningful and intelligent response to total objectivity — the universe and its Maker.

196:3.21 (2095.5) The exquisite and transcendent experience of loving and being loved is not just a psychic illusion because it is so purely subjective. The one truly divine and objective reality that is associated with mortal beings, the Thought Adjuster, functions to human observation apparently as an exclusively subjective phenomenon. Man's contact with the highest objective reality, God, is only through the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of knowing him, of worshipping him, of realizing sonship with him.

참된 종교적 경배는 자기 기만적인 쓸데없는 독백이 아니다. 경배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 즉 실체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과 몸소 교류하는 것이다. 사람은 경배함으로써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이상으로 삼아서 봉사하려는 시도가 순수한 종교 체험을--곧 영적 실체를--대신할 수 없다. 심리학과 관념론은 종교적 실체와 대등하지 않다. 인간 지능을 투영시킴으로써 잘못된 신들--곧 사람 형상의 신들--을 만들었겠지만, 참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기원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주하는 영에 내재한다. 사람이 만든 많은 종교 체계는 인간 지능이 고안해 냄으로써 생기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런 우스꽝스런 종교적 노예 체계의 일부분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관념론이 발명한 것이 아니며; 모든 초동물적 통찰력과 가치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인간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며; 그로부터 모든 우주 현상이 나타나는 사랑의 인격체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낙원**이라는 실체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의 체험을 통해서 증가하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통합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인격의 영적 체험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도덕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함, 즉 **조울사**의 내적 현존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데 꼭 필요한 선재{先在}하는 토양이지만, 그런 도덕성은 종교 체험과 그 결과로 생기는 영적 통찰력의 근원이 아니다. 도덕적 본성은 동물을 뛰어넘지만 영적이지는 못하다. 도덕성은, 의무를 인식함, 즉 옳고 그름이 실재함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인격이 달성하는 물질 분야와 영적 분야 사이에서 모른시아가 작용하듯이, 도덕적 범주는 동물 유형의 정신과 인간 유형의 정신 사이에 끼어있다.

진화하는 정신은, 법, 도덕, 및 윤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내주하는 **조울사**라는 증여된 영은, 입법자{立法者}, 즉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진화하는 인간 정신에게 드러내며; 그렇게 빛을 받은 사람은 종교를 소유하며, **하나님**을 향해 길고 모험적인 추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된다.

도덕성은 반드시 영적일 필요는 없으며; 참 종교가 모든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지라도, 전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일 수 있다. 종교가 없는 도덕성은 궁극적 선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한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속시키지도 못한다. 종교는, 인식되고 인정된 모든 도덕성을

196:3.22 (2095.6) True religious worship is not a futile monologue of self-deception. Worship is a personal communion with that which is divinely real, with that which is the very source of reality. Man aspires by worship to be better and thereby eventually attains the best.

196:3.23 (2095.7) The idealization and attempted service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not a substitute for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 spiritual reality. Psychology and idealism are not the equivalent of religious reality. The projections of the human intellect may indeed originate false gods — gods in man's image — but the true God-consciousness does not have such an origin. The God-consciousness is resident in the indwelling spirit. Many of the religious systems of man come from the formulations of the human intellect, but the God-consciousness is not necessarily a part of these grotesque systems of religious slavery.

196:3.24 (2095.8) God is not the mere invention of man's idealism; he is the very source of all such superanimal insights and values. God is not a hypothesis formulated to unify the human concept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he is the personality of love from whom all of these universe manifestations are derived.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man's world are unified by the increasing spirituality of the experience of mortals ascending toward Paradise realities. The uni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can only be realized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the God-knowing personality.

196:3.25 (2096.1) Morality is the essential pre-existent soil of personal God-consciousness,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Adjuster's inner presence, but such morality is not the source of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resultant spiritual insight. The moral nature is superanimal but subspiritual. Morality is equivalent to the recognition of duty, the realization of the existence of right and wrong. The moral zone intervenes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types of mind as morontia function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spheres of personality attainment.

196:3.26 (2096.2) The evolutionary mind is able to discover law, morals, and ethics; but the bestowed spirit, the indwelling Adjuster, reveals to the evolving human mind the lawgiver, the Father-source of all that is true, beautiful, and good; and such an illuminated man has a religion and is spiritually equipped to begin the long and adventurous search for God.

196:3.27 (2096.3) Morality is not necessarily spiritual; it may be wholly and purely human, albeit real religion enhances all moral values, makes them more meaningful. Morality without religion fails to reveal ultimate goodness, and it also fails to provide for the survival of even its own moral values. Religion provides for the enhancement,

항상시키고, 영화롭게 하고, 확실히 생존하도록 준비시킨다.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 윤리, 및 도덕보다 우위에 있지만, 그것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것들은 모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 체험에서 서로 확고하게 연관돼 있다. 종교는, 사람이 필사자 본성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지만, 언어가 유한하기 때문에, 신학이 실제 종교 체험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종교적 통찰력에는, 실패한 사람에게 더 높은 염원과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랑은, 사람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다. 그러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제외된 사랑은, 감상, 철학적 왜곡, 심령적 착각, 그리고 영적 기만에 불과하다. 사랑은, 이어지는 모론시아 수준과 영 진보에서 항상 다시 정의돼야 한다.

예술은, 사람이 물질 환경에서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애쓴 결과이며; 모론시아 수준으로 향하는 행위다. 과학은,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물질 우주의 문제를 풀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다. 철학은, 인간의 체험을 통합하려는 사람의 시도다. 종교는, 사람의 지고한 행위, 최종 실체를 향해 손을 뻗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닮으려는 결심이다.

종교 체험 영역에서는 영적 가능성이 잠재적 실체다. 사람의 표면화된 영적 충동은 심령의 환상이 아니다. 사람이 우주를 낭만적으로 과장한 이야기 전부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많은, 아주 많은 부분이 진리다.

어떤 사람의 삶은 너무 위대하고 고상해서, 단순히 성공적인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동물은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고, 이렇게 하여 신성한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현재의 물질 세상의 한계를 벗어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추구하는, 동물을 뛰어넘는 노력을, 이런 사랑의 개념이 사람의 혼 속에 발생시키며;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그 품속에서 영화롭게 되며; 이것들을 실천하려는, 정의를 행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좌절하지 말라; 인간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사람에게 중대한 도전은, 인간 정신 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육신 속에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_의식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려고--곧 신성한 현존과 접촉하려고--전심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혼_의식이 태어나는 희미한 영역을 거쳐서, 자아_의식 테두리를 밖으로 확장시키려고, 균형_감히게 노력하고 건전하게 노력하는 데 있다. 그런 체험은 **하나님**을_인식함, 즉 **하나님**을 아는 중

glorification, and assured survival of everything morality recognizes and approves.

196:3.28 (2096.4) Religion stands above science, art, philosophy, ethics, and morals, but not independent of them. They are all indissolubly interrelated in human experience, personal and social. Religion is man's supreme experience in the mortal nature, but finite language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ology ever adequately to depict real religious experience.

196:3.29 (2096.5) Religious insight possesses the power of turning defeat into higher desires and new determinations. Love is the highest motivation which man may utilize in his universe ascent. But love, divested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only a sentiment, a philosophic distortion, a psychic illusion, a spiritual deception. Love must always be redefined on successive levels of morontia and spirit progression.

196:3.30 (2096.6) Art results from man's attempt to escape from the lack of beauty in his material environment; it is a gesture toward the morontia level. Science is man's effort to solve the apparent riddles of the material universe. Philosophy is man's attempt at the unification of human experience. Religion is man's supreme gesture, his magnificent reach for final reality, his determination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196:3.31 (2096.7) In the realm of religious experience, spiritual possibility is potential reality. Man's forward spiritual urge is not a psychic illusion. All of man's universe romancing may not be fact, but much, very much, is truth.

196:3.32 (2096.8) Some men's lives are too great and noble to descend to the low level of being merely successful. The animal must adapt itself to the environment, but the religious man transcends his environment and in this way escape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material world through this insight of divine love. This concept of love generates in the soul of man that superanimal effort to find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when he does find them, he is glorified in their embrace; he is consumed with the desire to live them, to do righteousness.

196:3.33 (2097.1) Be not discouraged; human evolution is still in progress, and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world, in and through Jesus, shall not fail.

196:3.34 (2097.2) The great challenge to modern man is to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divine Monitor that dwells within the human mind. Man's greatest adventure in the flesh consists in the well-balanced and sane effort to advance the borders of self-consciousness out through the dim realms of embryonic soul-consciousness in a wholehearted effort to reach the borderland of spirit-consciousness — contact with the divine presence. Such an experience constitutes God-

교 체험이라는 선재{先在}하는 진리를 강력하게 확증하는 체험이다. 그런 영_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실제하는 것을 아는 것과 대등하다. 달리 말하면, 아들신분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다.

하나님을_인식함은, 자아를 우주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영적 실체와 통합하는 것에 상당한다. 어떤 가치든지, 오직 그 영적 내용만 불멸한다.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도, 인간의 체험에서만 불멸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생존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해 탄생되고 봉사하면서 양육된 그런 실체를, 잔존하는 **조울사**가 보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일부분이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랑이시며, **아버지**의 이 생명이 그 **아들**들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그 **아들**들의 아들들--곧 필사적 사람들--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완료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간 개념 중에서 **아버지** 관념이 여전히 가장 높은 개념이다.

consciousness, an experience mightily confirmative of the pre-existent truth of the religious experience of knowing God. Such spirit-consciousness is the equivalent of the knowledge of the actuality of sonship with God. Otherwise, the assurance of sonship is the experience of faith.

196:3.35 (2097.3) And God-consciousness is equivalent to the integration of the self with the universe, and on its highest levels of spiritual reality. Only the spirit content of any value is imperishable. Even that which is true, beautiful, and good may not perish in human experience. If man does not choose to survive, then does the surviving Adjuster conserve those realities born of love and nurtured in service. And all these things are a par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Father is living love, and this life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And the spirit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sons — mortal men. When all is said and done, the Father idea is still the highest human concept of God.

